



(USGNY[Urka]-KOR-000-2017-6)

The text of this Korean translation of *The Urantia Book* (UF-KOR-001-1996-6 URKA-version) is copyright © and published by:

The Urantia Society of Greater New York (USGNY)

PO Box 175

Fort Lee, NJ 07024-0175

website: www.urantia.nyc

email @: Support@urantia.nyc

NOTE¹: As of 2003 the copyright © for *The Urantia Book* (English version) is in the public domain.

NOTE²: The format of this eBook is copyright © Urantia Society of Greater New York. Permission to post or re-distribute can be obtained by contacting us here: Support@urantia.nyc.

유란시아 서

도서의 일부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모르본톤의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권한을 받아 활동하는 유버르사의 초우주 성격자 군단의 후원을 받았다

부 II.

지역우주

구원자 별의 가브리엘에서 권한을 받아 활동하는 네바돈 지역 우주 성격자 군단의 후원을 받았다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구원자 별의 가브리엘의 권한으로 활동하는 지역 우주 성격자 군단이 이 논문집을 후원하였다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이 논문집은 멜기세덱 계신 지휘자의 감독 밑에서 행동하는 유란시아의 열두 중도자로 구성된 위원회의 후원을 받았다.

이 이야기의 근거는 한때 사도 안드레를 초인간적으로 보호하는 데 배치된 한 2차 중도자가 제공하였다.

유랜시아 책

머 리 말

0:0.1 (1.1) 유란시아—이는 너희 세계의 이름이니—이곳의 필사자 마음속에서는 하느님, 신성(神性), 신(神)과 같은 그러한 용어들의 의미에 관하여 큰 혼동이 존재한다. 인간 존재들은, 이들 수많은 호칭으로 지칭되는 것 때문에, 신성한 개인성(個人性)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혼동이 되고 그리고 불분명하다. 그토록 많은 관념화에서의 혼동과 연관된 이 개념적 빈곤 때문에, 나는 오르본톤의 진리 계시자 무리단이 유란시아의 영어라는 언어로 옮기도록 허락받은 이 글에서 앞으로 사용될, 특정 단어 상징에 반드시 따라붙어야 할 의미에 대한 해설로서, 이 머리말을 쓰도록 지도를 받아왔다.

0:0.2 (1.2) 우리가 조화우주 의식을 확대시키고 영적 인식을 증진시키는 우리의 노력에서, 그 영역의 한정된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제약을 받으면서, 확대된 개념과 앞선 진리를 제시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명령자는 우리가 영어의 단어 상징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의미들을 전달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우리를 타이르고 있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개념이 부분적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다소간 의미가 왜곡되는 일이 있더라도, 묘사되는 개념에 적용될 수 있는 술어가 영어에 전혀 없을 때에만,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도록 지시를 받아왔다.

0:0.3 (1.3) 우리는, 이 글을 정독하는 모든 필사자의 편에 서서, 이해를 촉진시키고 혼동을 방지하려는 희망으로, 이 맨 처음 머리말에서 신(神)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우주적 실체에서의 사물, 의미, 그리고 가치들의 어떤 연관된 개념에 대한 정의에 적용되는, 수많은 영어 단어에 따라붙어야 할 의미의 개요를 제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긴다.

0:0.4 (1.4) 그러나 용어의 정의와 한계를 서술하고 있는 이 머리말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발표문에서의 이들 용어들의 용법들을 미리 예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머리말은 그 자체로서 완결되는 그러한 글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지금 이 목적을 위해 유란시아에 파송된 오르본톤 위원회가 작성한, 우주들의 우주와

신(神)을 다루는 글들을 읽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용어를 정의하는 안내일 뿐이다.

0:0.5 (1.5) 너희의 세계, 유란시아는 네바돈 지역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거주민이 사는 많은 유사한 행성의 하나이다. 이 우주는, 유사한 창조계들과 서로 합하여, 오르본톤 초(超)우주를 구성하고 있고, 그곳의 수도인 유버사로부터 우리 위원회는 내려왔다. 오르본톤은, 시작도-없고 끝도-없는 신성한 완전의 창조계—하보나라는 중앙우주—를 돌고 있는 일곱 개의 진화하는 시간과 공간의 초우주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 영원한 중앙우주의 한복판이 무한성의 지리적 중심이자 영원한 하느님의 처소인 고정되어 있는 파라다이스 섬이다.

0:0.6 (1.6) 진화하는 일곱 개의 초우주들을 중앙의 그리고 신성한 우주와 관계적-연합으로, 우리는 보통 대우주(大宇宙)라 한다; 이것들은 현재 조직되어 있고 거주민이 사는 창조계들이다. 그들은 모두, 외부 공간의 거주민이 살지 않는 그러나 동원하고 있는 우주들을 포용하는, 주(主)우주의 일부이다.

제 I 장. 신(神)과 신성

0:1.1 (2.1) 우주들의 우주는 조화우주 실체, 마음 의미, 그리고 영 가치들의 각양의 차원들에서 신(神)이 활동하는 현상들을 나타내지만, 이 모든 봉사사명들—개인적이든 다른 것이든—은 신성하게 조화-협동되어 있다.

0:1.2 (2.2) 신(神)은 하느님으로서 개인성구현 될 수 있는데, 사람에 의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방법으로 전(前)개인적이고 초(超)개인적이다. 신(神)은 실체의 모든 초(超)물질적 차원에서 합일체—실재적 또는 잠재적—의 본질특성으로 특징되어 진다; 이 통합하는 본질특성은 창조체들에게 신성(神性)이라는 말로 이해되는 것이 고작이다.

0:1.3 (2.3) 신(神)은 개인적, 전(前)개인적, 초(超)개인적 차원에서 기능한다. 전체 신(神)은 다음과 같은 일곱 차원 위에서 기능하고 있다.

0:1.4 (2.4) 1. 정적(靜的)-자아-억제되고 자아-실존적인 신(神)

0:1.5 (2.5) 2. 잠재적(潛在的)-자아-의지적이고 자아-목적의 신(神)

0:1.6 (2.6) 3. 연관적(聯關的)-자아-개인성구현되고 신성하게
형제우애(兄弟友愛)로 있는 신(神)

0:1.7 (2.7) 4. 창조적(創造的)-자아-배분적이 되고 신성하게
계시되는 신(神)

0:1.8 (2.8) 5. 진화적(進化的)-자아-확대적이 되고 창조체-
정체성 확인되는 신(神)

0:1.9 (2.9) 6. 최극적(最極的)-자아-체험적이고 창조체-창조자-
합일하는 신(神). 대우주의 시간-공간 전반적-
통제자들로서 최초의 창조체-정체화구현 차원에서
기능하는 신(神), 가끔 신(神)의 최극위로 나타낸다.

0:1.10 (2.10) 7. 궁극적(窮極的)-자아-구체적 투사이고 시간-
공간-초월의 신(神). 전능(全能), 전지(全知), 전재(全在)의
신(神). 주(主)우주 의 효력적인 전반적-통제자들 그리고
아(亞)절대적 유지자(維持者)들로서 신성 표현을
통합하는 두 번째 차원에서 기능하는 신(神). 신(神)들의
대우주에 대한 사명활동과 비교해 볼 때 이 주(主)우주
에서의 이 아(亞)절대적 차원의 기능은 우주적 전반적-

통제 그리고 초(超)-지탱수단과 대등하며, 신(神)의 궁극위라고 불린다.

0:1.11 (2.11) 실체의 유한 차원은 창조체의 생명과 시간-공간 한계로서 특징되어 진다. 유한 실체들은 끝남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시작이 있다—그들은 창조되었다. 궁극위의 신(神) 차원은 유한 실존(實在)들에 대한 관계 안에서 하나의 기능으로서 인식될 수도 있다.

0:1.12 (2.12) 실체의 아(亞)절대 차원은 시작됨이나 끝남이 없는 사물과 존재로서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초월로서 특징되어 진다. 아(亞)절대자들은 창조되지 않는다; 그들은 결국 생겨난다.—그들은 단지 그렇다. 궁극위의 신(神) 차원은 아(亞)절대 실체들에 대한 관계 안에서 하나의 기능을 내포한다. 주(主)우주 의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든지,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때마다, 그러한 아(亞)절대 현상은 신(神)의 궁극위의 활동이다.

0:1.13 (2.13) 절대 차원은 시작이란 것이 없음, 끝이란 것이 없음, 시간이란 것이 없음 그리고 공간이란 것이 없음이다. 예를 들면: 파라다이스에서 시간과 공간은 실존이 없다; 파라다이스의 시간-공간 지위는 절대적이다. 이 차원은,

실존적으로는, 파라다이스 신(神)들에 의해 달성되는 삼위일체이지만, 그러나 신(神) 표현을 통합하는 이 세 번째 차원은, 체험적으로는, 충분하게 통합되지 않는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든지, 신(神)의 절대차원이 기능하면 파라다이스-절대 가치들과 의미들은 현시된다.

0:1.14 (3.1) 신(神)은 영원한 아들 안에서처럼 실존적일 수 있고; 최극존재 안에서처럼 체험적일 수 있다; 칠중 하느님 안에서처럼 연관적일 수 있고;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처럼 비(非)분화적일 수 있다.

0:1.15 (3.2) 신(神)은 신성한 모든 것의 원천이다. 신(神)은 특징으로서 그리고 변함없이 신성이지만, 신성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반드시 신(神)인 것은 아닌데, 비록 그것이 신(神)과 조화-협동되어 있고 신(神)과—영적, 마음적, 또는 개인적으로—합일에서의 어떤 위상을 지향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하다.

0:1.16 (3.3) 신성(神性)은 특징이며, 통합시키고 그리고 조화-협동시키는 신(神)의 본질특성이다.

0:1.17 (3.4) 신성은 창조체에게 진리와 아름다움 그리고 선함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성 속에서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사명활동으로서 상관관계되며; 미(未)개인적 차원들에서는 공의(公義), 힘 그리고 주권으로 드러난다.

0:1.18 (3.5) 신성은 파라다이스 완전성의 실존적 그리고 창조자 차원에서처럼 완전—완벽—할 수도 있다; 시간-공간 진화의 체험적 그리고 창조체 차원에서처럼 불완전할 수도 있다; 또는 실존적-체험적 관계에서의 특정한 하보나 차원들에서처럼 완전하지도 불완전하지도 않고, 상대적일 수도 있다.

0:1.19 (3.6) 상대성(相對性)의 모든 위상과 형태 속에서 완전성을 인식하려 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인식 가능한 유형들을 접하게 된다:

0:1.20 (3.7) 1. 모든 양상에서의 절대적 완전성.

0:1.21 (3.8) 2. 몇몇 위상에서의 절대적 완전성과 다른 모든 양상에서의 상대적 완전성.

0:1.22 (3.9) 3. 다양한 관계적-연합 안에서 절대적, 상대적 그리고 불완전한 양상들.

0:1.23 (3.10) 4. 몇몇 관점에서의 절대적 완전성, 그 밖의 모든 것에서의 불완전성.

0:1.24 (3.11) 5. 어떤 방향에서도 절대적 완전성은 없고, 다른 모든 현시(顯示)활동 속에서의 상대적 완전성.

0:1.25 (3.12) 6. 어떠한 위상에서도 절대적 완전성은 없고, 일부는 상대적이고, 그 밖의 다른 것에서는 불완전성.

0:1.26 (3.13) 7. 어떠한 속성에서도 절대적 완전성은 없고, 모든 것에서 불완전성.

제 II 장. 하느님

0:2.1 (3.14) 진화하는 필사자(必死者) 창조체들은 하느님에 대한 자신들의 유한한 개념들을 상징화하려는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을 체험한다. 도덕적 의무와 영적 이상주의에 대한 사람의 의식은, 상징화하기 힘든 가치 차원—체험적 실체—을 나타내고 있다.

0:2.2 (3.15) 조화우주 의식은 첫째 원인, 곧 유일한 원인 없는 실체의 인식을 암시하고 있다. 하느님, 우주 아버지는 하위-무한 가치와 상대적인 신성 표현에서의 세 가지 신(神)-개인성 차원에서 기능한다:

0:2.3 (3.16) 1. 전(前)개인적—생각 조절자와 같은, 아버지 단편(斷片)의 사명활동에서와 같이.

0:2.4 (3.17) 2. 개인적—창조된 그리고 탄생된 실존의 진화하는 체험에서와 같이.

0:2.5 (3.18) 3. 초(超)개인적—어떤 아(亞)절대적이고 연관된 실존의 결국 생겨난 실존에서와 같이.

0:2.6 (3.19) 하느님은 신(神)의 모든 개인성구현을 지칭하는 하나의 언어 상징이다. 이 용어가 신(神)의 다양한 조화-협동의 그리고 종속하는 개인성구현을 지칭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지역우주의 아버지—과 같이, 이 용어는 신(神) 기능의 각 개인적 차원에서 서로 다른 정의가 필요하며, 그리고 각각의 이들 차원에서 아직도 더 다시 정의가 내려져야만 한다.

0:2.7 (4.1) 하느님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이렇게 납득될 수 있다:

0:2.8 (4.2) 호칭에서—아버지 하느님으로

0:2.9 (4.3) 문맥에서—어떤 하나의 신(神) 차원 또는 관계적-연합에 대한 논의에서 사용될 때처럼. 하느님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해석이 의심스러울 때는, 그것을 우주 아버지의 개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2.10 (4.4) 하느님이라는 용어는 언제나 개인성을 가리킨다. 신(神)은 신성 개인성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0:2.11 (4.5) 이 글들에서, 하느님이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들로 사용 된다:

0:2.12 (4.6) 1. 아버지 하느님—창조자, 통제자, 그리고 유지자. 우주 아버지, 신(神)의 첫째 개인.

0:2.13 (4.7) 2. 아들 하느님—조화-협동 창조자, 영 통제자, 그리고 영 관리행정자(管理者). 영원한 아들, 신(神)의 둘째 개인.

0:2.14 (4.8) 3. 영 하느님—공동 행위자, 우주 집대성을 이루는 자, 마음 증여자. 무한한 영, 신(神)의 셋째 개인.

0:2.15 (4.9) 4. 최극자 하느님—실재화하거나 진화하는 시간과 공간의 하느님. 창조체-창조자 정체성의 시간-공간 체험적

성취를 연관적으로 실현하는 개인적 신(神). 최극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진화 창조체들의 진화하는 그리고 체험적 하느님으로서 신(神) 합일의 성취를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0:2.16 (4.10) 5. 칠중 하느님—시간과 공간 속의 모든 곳에서 실재로 기능하는 신(神) 개인성. 중앙우주 안에서 그리고 그 경계 너머에서 기능하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신(神) 계시를 통합하는 첫 번째 창조체 차원에 있는 최극존재로서 힘-개인성구현하는, 개인적인 파라다이스 신(神)과 그들의 창조적 연관-동료들. 이런 차원, 대우주는 파라다이스 개인성들의 시간-공간 하강(下降)이 진화하는 창조체들의 시간-공간 상승과 상호보답적인 관계적-연합 속에 있는 구체다.

0:2.17 (4.11) 6. 궁극자 하느님—초(超)시간과 초월된 공간의 결국 생겨나고 있는 하느님. 통합하는 신(神) 현시활동의 두 번째 체험적 차원. 궁극자 하느님은 신(神) 실체의 최종 창조적 차원에서 조화-협동되는, 합성된 아(亞)절대-초개인적, 시간-공간-초월된 그리고 결국 생겨난-체험적 가치가 달성되어진 실현을 내포하고 있다.

0:2.18 (4.12) 7. 절대자 하느님—초월된 초(超)개인적 가치들과 신성 의미들을 체험적인 것으로 만드는 하느님, 현재는 신(神) 절대자로서 실존적이다. 이것은 신(神) 표현과 확대를 통합하는 세 번째 차원이다. 이 초(超)창조적 차원에서 신(神)은 개인성구현 될 수 있는 잠재성의 고갈을 체험하고, 신성의 완벽과 마주치며, 연속적이고도 점진적인 다른-개인성구현 차원에 자아-계시하는 수용능력의 고갈을 겪는다. 이제 신(神)은 분별불가 절대자를, 만나고, 부딪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정체성을 체험한다.

제 III 장. 첫째근원이며 중심

0:3.1 (4.13) 전체, 무한한 실체는 일곱 위상 안에서 그리고 일곱 조화-협동 절대자들로서 실존적이다.

0:3.2 (5.1) 1. 첫째근원이며 중심.

0:3.3 (5.2) 2. 둘째근원이며 중심.

0:3.4 (5.3) 3. 셋째근원이며 중심.

0:3.5 (5.4) 4. 파라다이스 섬.

0:3.6 (5.5) 5. 신(神) 절대자.

0:3.7 (5.6) 6. 우주 절대자.

0:3.8 (5.7) 7. 분별불가 절대자.

0:3.9 (5.8) 하느님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으로서 전체 실체와의 관계 안에서 시원적(始原的)이다.—분별불가하게 그러하다.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무한하다, 그리고 그리하여 오직 의지작용에 의해서만 제한되거나 조건 지워진다.

0:3.10 (5.9) 하느님—우주 아버지—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개인성이며 모든 조화-협동적인 그리고 종속적인 근원과 중심들을 무한 통제하는 개인적 관계를 그렇게 유지한다. 그러한 통제는, 그렇게 조화-협동적 그리고 종속적 근원과 중심과 개인성들의 기능의 완전성 때문에, 그것이 비록 실재로는 결코 기능하지 않을지라도 잠재성에서 개인적이며 무한하다.

0:3.11 (5.10) 그러므로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신(神)화 되었거나 비(非)신(神)화 되었거나, 개인적이거나 미(未)개인적이거나, 실재적이거나 잠재적이거나,

유한하거나 무한하거나: 모든 권역에서 시원적이다.
어떠한 사물이나 존재, 어떠한 상관이나 최종이든지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시원성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의존하지 않고는 존재하지 못한다.

0:3.12 (5.11)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우주에 다음과 같이
관계되어 있다:

0:3.13 (5.12) 1. 물질적 우주의 중력 기세들은 하부
파라다이스의 중력 중심 안에 한 점으로 집중된다. 그것이
바로, 그의 개인의 지리적 위치가, 파라다이스의 하부 곧
물질적 평면의 기세-에너지 중심과의 절대적 관계 안에
영원하게 고정되어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신(神)의 절대
개인성은 파라다이스의 상부 또는 영적 평면에 존재한다.

0:3.14 (5.13) 2. 마음 기세는 무한한 영 안에 한 점으로 집중된다;
차별적이고 발산적(發散的)인 조화우주 마음은 일곱
주(主) 영 안에 한 점으로 집중된다; 시간-공간 체험으로서
사실화하는 최극자의 마음은 장엄자 안에 한 점으로
집중된다;

0:3.15 (5.14) 3. 우주 영(靈) 기세는 영원한 아들 안에 한 점으로 집중된다.

0:3.16 (5.15) 4. 신(神) 활동을 위한 무제한적 수용능력은 신(神) 절대자 안에 갖추어져 있다.

0:3.17 (5.16) 5. 무한 응답을 위한 무제한적 수용능력은 분별불가 절대자 속에 존재한다.

0:3.18 (5.17) 6. 두 절대자—분별화된 절대자와 분별불가 절대자—는 우주 절대자 안에서 그리고 그에 의해 합일되고 조화-협동을 이루고 있다.

0:3.19 (5.18) 7. 진화하는 도덕적 존재 또는 다른 어떤 도덕적 존재의 잠재적 개인성은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에 집중되어있다.

0:3.20 (5.19) 실체는, 유한존재들이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분적이고 상대적이며 그림자와 같다. 진화하는 유한 창조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신(神) 실체는 최극존재 품 안에서 포용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하는 시간-공간 창조체들의 이 최극 신(神)에게 조상이 되는 선행적이고 영원한 실체들,

초(超)유한 실체들이 있다. 우주 실체의 기원과 본성을 묘사하려고 시도하면서, 우리는 유한 마음차원에 도달하기 위하여 시간-공간 추론의 기법을 채택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영원의 동시적 사건들이 순차적인 활동행위로 묘사될 수밖에 없다.

0:3.21 (6.1) 시간-공간 창조체가 실체의 기원과 차별화된 분화를 본다고 한다면, 영원하고 무한한 스스로 이신 이는 선천적이고 영원한 자유의지의 행사를 통하여 분별불가한 무한의 족쇄로부터 신(神) 해방을 획득하였고, 분별불가 무한으로부터의 이 결별은 최초의 절대 신성-긴장을 생산하였다. 이러한 무한 차별의 긴장은, 전체 신(神)의 역동적 무한과 분별불가 절대자의 정적인 무한을 통합시키고 조화-협동시키려고 기능하는 우주 절대자에 의해 해소된다.

0:3.22 (6.2) 이러한 기원적 활동행위에 있어서, 이론적인 스스로 이신 이는 파라다이스 섬의 영원한 근원이 됨과 동시에 근원 아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됨으로써 개인성 실현을 성취하였다. 아들이 아버지와 구별됨으로서 공존하고, 그리고 파라다이스의 현존 안에서, 무한한 영의

개인과 하보나라는 중앙우주가 출현된다. 공존하는 개인적 신(神),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출현과 함께, 아버지는, 한 개인성으로서,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총체적 신(神)의 잠재성에 두루 불가피할 확산으로부터 벗어났다. 그 이후로 아버지가 모든 신(神) 잠재성을 채우는 일은 오직 그의 동등한 두 신(神)들과 관계적-연합하는, 삼위일체 안에서만 이며 그러면서 한편, 체험적인 신(神)은 최극위, 궁극위, 그리고 절대성의 신성 차원에서 점점 더 실재화되고 있다.

0:3.23 (6.3) 스스로 이신이라는 개념은, 시간에-갇혀있고 공간에-매인 인간의 유한한 마음에게, 영원함—시작함이 없고 끝남이 없는 실체와 관계성들—이 실존이라는 것에 대한 창조체 이해의 불가능성에 대하여 우리가 만든 철학적 양보이다. 시간-공간 창조체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은 원인 없는 한 분—원인들 중 최초의 원인—외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철학적 가치-차원을 스스로 이신 이로서 개념화시키고, 동시에 영원한 아들 및 무한한 영이 스스로 이신 이와 공존영원이라는 것을 모든 창조체들에게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이신 이가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었고, 그와 함께, 영의 아버지가 아니었던 때가 결코 없었다.

0:3.24 (6.4) 무한자는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시원성이 내포하는 충만함—최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론적인 스스로 이신 이는 “의지의 무한”에 대한 창조체-철학적 확장이지만, 무한자는 우주 아버지의 절대적이고 속박 받지 않는 자유 의지의 참 무한의 영원-긴장을 나타내는 실재적 가치-차원이다. 이 개념은 종종 아버지-무한으로 명시된다.

0:3.25 (6.5) 아버지-무한자를 발견하려는 노력에서, 높고 낮은 존재들의 모든 계층에서의 대부분의 혼동은 그들 이해력 한계들로서 선천적이다. 우주 아버지의 절대 시원성은 하위-무한 차원들에서는 명백하지 않다; 따라서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만이 정말로 아버지를 무한으로 아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모든 개인성들에게는 그러한 개념이 신앙의 과제를 나타낸다.

제 IV 장. 우주 실체

0:4.1 (6.6) 실체는 다양한 우주 차원들에서 서로 다르게 실재화한다; 실체는 우주 아버지의 무한 의지작용 속에서 그리고

그것에 의해 기원되고 우주 실재화구현의 서로 다른 많은 차원들에서 세 가지 시원적 위상들로 실현가능 하다:

0:4.2 (6.7) 1. 비(非)신(神)화된 실체는 비(非)개인적인 것의 에너지 권역에서부터 우주적 실존의 비(非)개인성구현화 할 수 있는 가치들의 실체 영역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분별불가 절대자의 현존에 이르기까지 걸쳐있다.

0:4.3 (7.1) 2. 신(神)화된 실체는 가장 낮은 유한으로부터 가장 높은 무한에 이르는 개인성의 모든 영역들을 지나고 그 위쪽으로 범위를 갖는 무한 신(神) 잠재성의 모두를 포용한다. 그렇게 개인성구현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상인 모든 것의 권역을—심지어는 신(神) 절대자의 현존까지—포용한다.

0:4.4 (7.2) 3. 상호-연관된 실체. 우주 실체는 아마도 신(神)화되었거나 비(非)신(神)화 되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지만, 하위-신(神)화 존재들에게는 정체화구현이 어려운, 잠재적이고 실재화하는, 상호-연관된 실체의 광대한 권역이 존재한다. 이 조화-협동 실체의 대부분은 우주 절대자의 영역 속에 포용된다.

0:4.5 (7.3) 기원적 실체의 시원적 개념은 이러하다: 아버지가 실체를 시작하고 유지한다. 실체의 시원적 차이점들은 신(神)화된 존재와 비(非)신(神)화된 존재—신(神) 절대자와 분별불가 절대자—이다. 시원적 관계는 그들 사이의 긴장이다. 아버지가-시작한 이 신성-긴장은 우주 절대자에 의해 완전하게 해결되고 우주 절대자로서 영원화 한다.

0:4.6 (7.4)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보면, 실체는 다음과 같이 더 구분될 수 있다:

0:4.7 (7.5) 1. 실재적과 잠재적. 표현의 총만함에서 존재하고 있는 실체들과 이와 대조되는 드러나지 않은 성장의 수용능력을 갖는 것들. 영원한 아들은 절대적 영적 실재성이다; 필사 사람은 매우 광범위하게 실현되지 않은 영적 잠재성이다.

0:4.8 (7.6) 2. 절대적과 하위-절대적. 절대 실체들은 영원 실존들이다. 하위-절대 실체들은 두 차원들 위에 구체적으로 투사되어 있다; 아(亞)절대—시간과 영원 모두에 관하여 관계적인 차원에 있다. 유한—공간 속에

구체적으로 투사되어 있고 시간 속에서 실재화되는 차원에 있다.

0:4.9 (7.7) 3. 실존적과 체험적. 파라다이스 신(神)은 실존적이지만, 창발(創發)하는 최극자와 궁극자는 체험적이다.

0:4.10 (7.8) 4. 개인적과 미(未)개인적. 신(神) 확대, 개인성 표현 그리고 우주 진화는, 영원한 파라다이스 섬 안에 중심을 두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실재성과 잠재성의 가치들 그리고 마음-영-개인적 의미들을 언제까지나 분리시켜 영원한 아들 안에 중심을 두게 하는, 아버지의 자유의지 활동에 의해 언제까지나 갖추어진다.

0:4.11 (7.9) 파라다이스는 우주 실체의 모든 위상들의 개인적 그리고 비(非)개인적 초점이 되는 절대자들에 대한 포괄적 용어이다. 파라다이스는, 올바르게 분별화하면, 실체, 신(神), 신성, 개인성 그리고 에너지의 의 일부 또는 모든 형태—영적, 마음적, 또는 물질적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가치, 의미 그리고 사실적 실존에 관해서, 모두가 파라다이스를 기원과 기능과 운명의 장소로서 공유한다.

0:4.12 (7.10) 파라다이스 섬—별달리 분별화되지 않은

파라다이스—는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물질-중력 통제의 절대자이다. 파라다이스는 움직이지 않는데, 우주들의 우주 안에서 유일하게 고정된 것이다. 파라다이스 섬은 우주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공간 속에서 아무런 자리가 없다. 영원한 이 섬은 물리적 우주—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실재적 근원이다. 핵을 이루는 빛의 섬은 신(神)의 파생이지만, 그것은 신(神)이 전혀 아니다; 또한 신(神)의 일부분인, 물질적 창조도 아니다; 그들은 하나의 귀결이다.

0:4.13 (7.11) 파라다이스는 창조자가 아니다; 그것은 많은 우주

활동에 대한 독특한 통제자인데, 반응장치라기보다는 통제자에 훨씬 가깝다. 물질적 우주에 두루 파라다이스는 기세, 에너지 그리고 힘과 상관이 있는 모든 존재들의 반응과 행위성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그러나 파라다이스 자신은 우주 안에서 독특하고 배타적이며 고립되어 있다. 파라다이스는 아무 것도 나타내지 않고 아무 것도 파라다이스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것은 기세도 아니고 현존(顯存)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파라다이스일 뿐이다.

제 V 장. 개인성 실체

0:5.1 (8.1) 개인성은 신(神)화 된 실체의 차원이며, 경배와 지혜의 상급 마음 활동화에 있는 필사자와 그리고 중도자 차원에서부터, 그 위로 모론시아적 그리고 영적 차원을 지나 개인성 지위의 최종 달성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미치고 있다. 그것은 필사- 그리고 친족이 되는-창조체 개인성의 진화적 상승이며, 한편 수많은 다른 계층의 우주 개인성들이 존재한다.

0:5.2 (8.2) 실체는 우주적 확대가 전제되고, 개인성은 무한한 다양화가 전제되며, 그리고 이 둘 모두는 거의 무제한적 신(神) 조화-협동과 영원한 안정을 이룩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 비(非)개인적 실체의 형태변형 범위는 분명하게 한정되어 있는 반면, 우리는 개인성 실체들의 진보적인 진화에는 어떤 한계도 없음을 안다.

0:5.3 (8.3) 체험적 차원들을 달성할 때, 모든 개인성 계층이나 또는 가치는 연관할 수 있고 심지어는 공동창조적이 된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미가엘의 현재 지위—사람의 아들 및 하느님의 아들—안에서 그토록 완벽하게 실증되는

것처럼, 하느님과 사람까지도 합일된 개인성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

0:5.4 (8.4) 개인성의 모든 하위-무한 계층들과 위상들은 연관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잠재적으로 공동창조적이다. 전(前)개인적, 개인적, 그리고 초(超)개인적 존재들은 조화-협동적 달성, 진보적 성취 그리고 공동창조적 수용능력의 상호간의 잠재성으로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미(未)개인적 존재들은 직접 개인성 존재로 결코 변형될 수 없다. 개인성은 결코 자연발생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선물이다. 개인성은 에너지 위에 포개어 얹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오직 생명의 에너지 체계와 연관된다; 정체성은 비(非)생명의 에너지 원형틀(元型틀)들과 연관될 수 있다.

0:5.5 (8.5) 우주 아버지는 개인성의 실체, 개인성의 증여, 그리고 개인성의 운명의 비밀이다. 영원한 아들은 절대적 개인성, 영적 에너지, 모론시아 영 그리고 완전하게 된 영들의 비밀이다. 공동 행위자는 영-마음 개인성, 지능과 이성 그리고 우주적 마음의 근원이다. 그러나 파라다이스 섬은 비(非)개인적이며, 가외(加外)영적, 우주 몸체의 본질

존재, 물리적 물질의 근원이자 중심, 그리고 우주의 물질적 실체의 절대 주(主)원형틀(元型틀)이다.

0:5.6 (8.6) 우주 실체의 이러한 본질특성들은 다음과 같은 차원들에서 유란시아의 인간 체험 속에서 현시된다:

0:5.7 (8.7) 1. 몸체. 사람의 물질적 또는 물리적 유기조직체. 동물의 자연본성과 기원을 갖는 생명의 전기화학적 기능구조.

0:5.8 (8.8) 2. 마음. 인간 유기조직체의 생각하고 지각하고 느끼는 기능구조. 모든 의식 그리고 무의식 체험 전체. 경배와 지혜를 통하여, 위로는 영 차원까지 이르는 감정적 생명과 연관된 지능.

0:5.9 (8.9) 3. 영. 사람의 마음에 깃드는 신성한 영—생각조절자. 이 불멸의 영은, 비록 생존되는 필사 창조체 개인성의 일부분이 되도록 운명되었지만, 개인성이 아니고-전(前)개인적이다.

0:5.10 (8.10) 4. 혼. 사람의 혼은 체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필사 창조체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함에 따라, 그렇게 깃들어 있는 영은 인간 체험 안에서

새로운 실체의 아버지가 된다. 필사 이면서 그리고 물질적 마음은 바로 이 창발(創發)하는 실체의 어머니이다. 이 새로운 실체의 본질은 물질적인 것도 또한 영적인 것도 아니며—그것은 모론시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필사자 죽음에서 살아남고 파라다이스 상승을 시작하도록 운명된 창발하는 불멸의 혼이다.

0:5.11 (9.1) 개인성. 필사 사람의 개인성은 몸체도 마음도 영도 아니다; 그것은 혼 또한 아니다. 개인성은 모든 것이 항상-변하는 창조체 체험 속에 있는 유일하게 변함이 없는 실체이다; 그것은 다른 모든 연관된 개별존재성의 요소들을 통합시킨다. 개인성은, 우주 아버지가 물질, 마음, 그리고 영의 살아있고 연관된 에너지들 위에 이룩하는, 그리고 모론시아 혼의 생존으로 살아남는, 독특한 증여물이다.

0:5.12 (9.2) 모론시아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 있는 광대한 차원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그것은 개인적 또는 미(未)개인적 실체들, 생명의 또는 비(非)생명의 에너지들을 가리킬 수 있다. 모론시아의 날줄은 영적이다; 한편 그 씨줄은 물리적이다.

제 VI 장. 에너지와 원형틀

0:6.1 (9.3) 아버지의 개인성 순환회로에 응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개인적이라고 부른다. 아들의 영 순환회로에 응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영이라고 부른다. 공동 행위자의 마음 순환회로에 응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마음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무한한 영의 속성으로서의 마음—그 모든 위상에 있는 마음—이다. 하부 파라다이스에 중심을 두는 물질-중력 순환회로에 대해 응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물질—그 모든 형태변형 상태에 있는 에너지-물질—이라고 부른다.

0:6.2 (9.4) 에너지를 우리는 영적, 마음적, 그리고 물질적 영역 모든 것을-포함하여 적용되는 용어로서 사용한다. 기세도 역시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힘은 대개 대우주 안에 있는 물질적 또는 직선적-중력-응답 물질의 전자적 차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또한 힘은 주권을 의미할 때에도 사용된다. 우리는 너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세와 에너지 그리고 힘에 대한 정의(定意)를 따를 수 없다. 언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 용어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0:6.3 (9.5) 물리적 에너지는 현상적 움직임, 활동 그리고 잠재성의 모든 위상과 형태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0:6.4 (9.6) 물리-에너지 현시활동을 논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화우주 기세, 창발 에너지, 그리고 우주 힘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한다. 이것들은 종종 다음과 같이 사용 된다:

0:6.5 (9.7) 1. 조화우주 기세는 분별불가 절대자로부터 유래되어 나오지만 그러나 아직은 파라다이스 중력에 응답하지는 않는 모든 에너지들을 포용한다.

0:6.6 (9.8) 2. 창발 에너지는 파라다이스 중력에는 응답하지만 지역적 또는 직선 중력에 아직 응답하지 않는 에너지들을 포용한다. 이것은 에너지-물질의 전자-이전(以前) 차원이다.

0:6.7 (9.9) 3. 우주 힘은 파라다이스 중력에 여전히 응답하면서, 한편 직선 중력에 직접적으로 응답하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들을 포함한다. 이것은 에너지-물질의 전자차원과 그로부터 뒤따라 일어나는 모든 진화들을 포함한다.

0:6.8 (9.10) 마음은 다양한 에너지 체계에 덧붙인, 살아있는 사명활동의 현존-활동을 내포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지능 차원에 진실로 그러하다. 개인성 안에서 마음은 언제나 영과 물질 사이에 끼어있다; 그 결과 우주는 세 종류의 빛으로 밝게 비추어 진다; 물질적 빛, 지적 통찰력, 그리고 영(靈) 광채이다.

0:6.9 (10.1) 빛—영 광채—은 하나의 단어상징, 다양한 계층의 영 존재들이 개인성으로 현시활동되어 있음을 특징으로서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다. 이 광채의 방출은 지적 통찰력이나 물리적-빛의 현시활동과는 어떤 면에서도 관계가 없다.

0:6.10 (10.2) 원형들은 물질적, 영적, 또는 마음적, 또는 이들 에너지들의 모든 조합으로서 구체적으로 투사될 수 있다. 그것은 개인성, 정체성, 실존개체, 또는 비(非)생명 물질에 가득 퍼질 수 있다. 그러나 원형들은 원형들 자체이고 원형들로 남아 있다; 오직 복제들만이 배가(倍加)된다.

0:6.11 (10.3) 원형들은 에너지를 배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제하지는 않는다. 중력만이 에너지-물질에 대한 유일한 통제이다. 공간이나 원형들 모두가 다 중력에는

응답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공간과 원형틀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없다; 공간은 원형틀도, 잠재적 원형틀도 모두 아니다. 원형틀은 모든 중력의 빛을 이미 다 깊은 실체의 배열이다; 어떠한 원형틀로 이루어진 실체는 에너지, 마음, 영 또는 물질 성분들로 구성된다.

0:6.12 (10.4) 전체의 양상과는 대조적으로, 원형틀은 에너지의 그리고 개인성의 개별적 양상을 나타낸다. 개인성 또는 정체성 형태들은 에너지(물리적, 영적, 또는 마음적)로부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원형틀이지만 그러나 형태들이 선천적으로 원형틀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원형틀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는 것 덕분에, 그 에너지의 또는 그 개인성의 본질특성이 하느님—신(神)—으로, 파라다이스 기세 자질로, 개인성과 힘의 공존으로 속성을 지니게 되는 것 같다.

0:6.13 (10.5) 원형틀은 복제들이 만들어지는 주(主) 설계도이다. 영원한 파라다이스는 원형틀의 절대이다; 영원한 아들은 원형틀 개인성이다; 우주 아버지는 그 둘 모두의 직접적 조상-근원이다. 그러나 파라다이스는 원형틀을 증여하지 않으며, 아들은 개인성을 증여할 수 없다.

제 VII 장. 최극존재

0:7.1 (10.6) 주(主)우주 의 신(神) 기능구조는 영원 관계들을 고려할 때 이중적이다.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하느님 그리고 영 하느님은 영원하시다—모두 실존적 실존이시다—, 반면 최극자 하느님과 궁극자 하느님 그리고 절대자 하느님은, 시간-공간 안에서 그리고 주(主)우주 진화적 확대의 시간-공간-초월 구체들 안에서 하보나-이후 신(新)시대의, 실재화하는 신(神) 개인성들이다. 이들 실재화하는 신(神) 개인성들은, 영원한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연관적-창조적 잠재성들의 체험적 실재화구현의 기법에 의해 성장하는 우주들 안에서 그들이 힘-개인성구현 할 때부터, 그리고 그처럼, 미래 영원자(永遠者)들이다.

0:7.2 (10.7) 신(神)은, 그러므로, 현존에서 2원적(二元的)이다:

0:7.3 (10.8) 제 1 장. 실존적—영원한 실존 존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존재들.

0:7.4 (10.9) 제 2 장. 체험적—하보나-이후 현재 속에서 실재화하는 그러나 모든 미래 영원에 두루 끝남이 없는 실존의 존재들.

0:7.5 (10.10)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실존적—실재성에서 실존적이다. (모든 잠재성들이 체험적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최극자와 궁극자는 전적으로 체험적이다. 신(神) 절대자는 실재화구현됨에 있어서 체험적이지만 잠재성에 있어서는 실존적이다. 신(神)의 본질은 영원이지만, 그러나 오직 신(神)의 세 기원적 개인들만이 분별불가하게 영원하다. 모든 다른 신(神) 개인성들은 기원을 갖지만 그러나, 그들은 운명에 있어서 영원하다.

0:7.6 (10.11) 아들과 영 안에서 자신에 대한 실존적 신(神) 표현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지금 최극자 하느님과 궁극자 하느님 그리고 절대자 하느님으로서, 지금까지 미(未)개인적이고 계시되지 않은 신(神) 차원에서, 체험적 표현을 성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체험적 신(神)이 지금은 충분하게 실존적이지는 않다; 그들은 실재화구현의 과정에 있다.

0:7.7 (11.1) 하보나에 있는 최극자 하느님은 삼원일체(三元一體) 파라다이스 신(神)의 개인적 영 반영이다. 이 연관적인 신(神) 관계는 칠중 하느님으로 지금 창조적으로 확대하며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대우주

안에 있는 전능 최극자의 체험적 힘으로 합성되고 있다. 세 개인으로서 실존적인, 파라다이스 신(神)은 최극위의 두 위상들 안에서 그렇게 체험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반면, 이 이원적 위상들은 힘-개인성이 한 분 주님, 최극존재로서 통합하는 것이다.

0:7.8 (11.2) 우주 아버지는 삼위일체화구현의 기법, 삼중 신(神) 개인성구현에 의해 무한함의 속박과 영원함의 족쇄로부터 자유의지 해방을 성취하신다. 최극존재는 대우주의 시간-공간마디 안에서 신(神) 칠중 현시활동의 하위-영원적 개인성 통일로서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0:7.9 (11.3) 최극존재는, 그가 장엄자의 아버지임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창조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모든 창조체-창조자 우주 활동의 합성적 조화-협동자이다. 최극존재는, 지금 진화적 우주들 안에서 실재화하고 있으며, 시간-공간 신성의, 시간과 공간의 최극 창조자와 체험적 관계적-연합에 있는 삼원적 파라다이스 신(神)의, 상관자이며 합성자이다. 최종적으로 실재화 되면, 이 진화적 신(神)은 유한과 무한의 영원한 융합—체험적 힘과

영 개인성의 영속하는 그리고 분해 될 수 없는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0:7.10 (11.4) 진화하는 최극존재의 지도하는 자극을 받는 모든 시간-공간 유한 실체는, 초(超)창조체 달성의 아(亞)절대 차원들에 도달하려는 시도 위에서 뒤이어 오르는 목적과 끝을 향해, 파라다이스 실체의 다양한 위상들과의 관계적-연합 속에서, 유한 실체의 모든 위상과 가치의 계속-상승하는 동원과 완전해지는 통일(힘-개인성 합성)에 몰두하게 된다.

제 VIII 장. 칠중 하느님

0:8.1 (11.5) 지위에서의 유한성을 보상하고 그리고 개념에서의 창조체 한계를 보충하기 위하여, 우주 아버지는 진화하는 창조체의 신(神)을 향한 칠중(七重) 접근을 확립하였다:

0:8.2 (11.6) 1.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

0:8.3 (11.7) 2. 옛적으로 늘 계신이.

0:8.4 (11.8) 3. 일곱 주(主) 영.

0:8.5 (11.9) 4. 최극존재.

0:8.6 (11.10) 5. 영 하느님.

0:8.7 (11.11) 6. 아들 하느님.

0:8.8 (11.12) 7. 아버지 하느님.

0:8.9 (11.13)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그리고 일곱 초우주들에 대한 이 칠중 신(神) 개인성구현이 영(靈)이신 하느님의 현존을 필사 사람이 달성할 수 있게 한다. 최극존재 안에서 언젠가는 힘-개인성구현 될 유한한 시간-공간 창조체들에게, 이 칠중 신(神)은, 파라다이스-상승 생애의 필사자인 진화하는 창조체들의 기능적 신(神)이다. 하느님 실현이라는 그러한 체험적 발견-생애는 지역우주의 창조자 아들의 신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시작하고, 초우주 옛적으로 늘 계신이를 통하고, 그리고 일곱 주(主) 영들 중 한 분 개인을 지나서,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우주 아버지의 신성한 개인성의 발견과 인식을 달성하는 데까지 상승한다.

0:8.10 (12.1) 대우주는 최극위 삼위일체, 칠중 하느님 그리고 최극존재의 삼중적 신(神)의 권역이다. 최극자 하느님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 있는 잠재성이며, 그는 자신의

개인성과 영 속성을 그로부터 이끌어낸다; 그러나 그는 지금 창조자 아들, 옛적으로 늘 계신이 그리고 주(主) 영 안에서 실재화하고 있으며, 그는 시간과 공간의 초우주들에 대한 전능자로서의 그의 힘을 그들로부터 이끌어낸다. 진화하는 창조체들의 즉각적 하느님의 이 힘 현시활동은, 실재로 그들과 함께 동시적으로 시간-공간에서 진화한다. 비(非)개인적 활동들의 가치-차원에서 진화하는, 전능 최극자 그리고 최극자 하느님의 영 개인은 하나의 실체—최극존재—이다.

0:8.11 (12.2) 칠중 하느님의 신(神) 관계적-연합 안에 있는 창조자 아들들이 제공하는 기능구조에 의해 필사자는 불멸이 되고 유한자가 무한자의 포용을 달성한다. 최극존재가 이들 모든 갖가지 활동행위의, 힘-개인성 동원, 신성한 합성을 위한 기법을 제공하며, 그리하여 유한자를 아(亞)절대에 도달하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가능한 미래 실재화구현들을 통하여 궁극자의 달성을 시도하게 한다. 창조자 아들과 그들의 연관된 신성한 사명활동자들이 이 최극 동원에 참여된다, 그러나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 일곱 주(主) 영들은 아마 대우주 안에서 영구적인 관리행정자들로써 영원히 고정된 것 같다.

0:8.12 (12.3) 칠중 하느님의 기능은 일곱 초우주들의 조직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외부 공간의 창조계의 미래 진화와 관련되어 확대할 것이다. 진보해 나아가는 진화의 1차적, 2차적, 3차적, 그리고 4차적 공간 차원(次元)들의 이 미래 우주들의 조직은 신(神)에 도달하는 초월적이고 아(亞)절대적인 접근의 개시를 분명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제 IX 장. 궁극자 하느님

0:9.1 (12.4) 최극존재가 에워싸인 에너지와 개인성의 대우주 잠재성에서의 선행하는 신성 자질로부터 진보적으로 진화하는 것과 똑같이, 바로 그에 따라 궁극자 하느님은 주(主)우주 의 초월된 시간-공간 권역들 안에 거하는 신성의 잠재성들로부터 결국 생겨난다. 궁극적 신(神)의 실재화구현은 첫 번째 체험적 삼위일체의 아(亞)절대 통일을 알리고 그리고 창조적 자아-실현의 두 번째 차원 위에서 통합하는 신(神) 확대를 알려준다. 이것은, 초월된 시간-공간 가치들의 결국 생겨난 차원위에서, 파라다이스 아(亞)절대 실체의 우주 체험적-신(神) 실재화구현과 동등한 개인성-힘을 이룬다. 그러한 체험적 전개는, 최극존재의 완성된 실현을 통해 그리고 칠중 하느님의

사명활동에 의해 아(亞)절대 차원들을 달성해 온, 모든 시간-공간 창조체들에게 궁극적 봉사-운명을 갖추어 이루도록 고안되어 있다.

0:9.2 (12.5) 궁극자 하느님은 아(亞)절대의 신성 차원들 위에서 그리고 초(超)시간과 초월공간의 우주 구체들 위에서 기능하는 개인적 신(神)을 가리킨다. 궁극자는 신(神)의 초(超)최극 결국 생겨남이다. 최극자는 유한 존재에게 이해되는 삼위일체 통일이다; 궁극자는 아(亞)절대 존재에게 이해되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통일이다.

0:9.3 (13.1) 우주 아버지는, 진화적 신(神)이라는 기능구조를 통하여, 그들 각각의 우주 의미-차원 위에서, 유한한, 아(亞)절대적, 그리고 심지어 절대적인 신성한 실체의 가치의, 개인성의 초점화구현과 힘 동원화의, 그 엄청나고도 놀라운 활동에 실재로 종사되어 있다.

0:9.4 (13.2) 맨 처음 세분이자 과거-영원인 파라다이스 신(神)—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은, 영원한 미래에, 연관하는 진화적 신(神)들—최극자 하느님, 궁극자 하느님, 그리고 아마도 절대자 하느님—의 체험적 실재화구현에 의해 개인성-보완되도록 되어 있다.

0:9.5 (13.3) 지금 체험적 우주들 안에서 진화하고 있는, 최극자 하느님과 궁극자 하느님은 실존적이 아니다—과거 영원자가 아니고, 오직 미래 영원자, 시간-공간-제약된 그리고 또 초월성-제약된 영원자이다. 그들은 최극, 궁극, 그리고 아마도 최극-궁극 자질들을 가진 신(神)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역사적 우주 기원을 체험해 왔다. 그들에게는 결코 끝이 없겠지만, 그들에게는 개인성 시작들이 있었다. 그들은 정말로 영원하고 무한한 신(神) 잠재성의 실재화구현들이지만, 그들 자신은 분별불가하게 영원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다.

제 X 장. 절대자 하느님

0:10.1 (13.4) 시간-공간 유한 마음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신(神) 절대자의 영원한 실체의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그러나 절대자 하느님의 실재화구현은 두 번째 체험적 삼위일체, 절대자 삼위일체의 통일의 귀결 안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절대 신성의 체험적 실현, 절대 차원들에서의 절대 의미들의 통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화된 절대자가 무한자와 동등하다고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절대 가치들을 포함하는 것에 관하여 확신하지 못한다. 초(超)궁극 운명들은 절대

의미들과 무한한 영성(靈性) 두 가지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들 성취되지 않은 두 실체 없이는 우리가 절대 가치들을 성립시킬 수 없다.

0:10.2 (13.5) 절대자 하느님은 모든 초(超)아(亞)절대 존재들의 실현-달성 목표이다, 그러나 신(神) 절대자의 힘과 개인성 잠재성은 우리의 개념을 초월하며, 그리고 우리는 체험적 실재화구현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실체들을 논하기가 망설여진다.

제 XI 장. 세 절대자

0:11.1 (13.6)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병합된 생각이, 행동의 하느님 안에서 기능하면서, 신성한 것 그리고 중앙우주의 창조를 이루었을 때, 아버지는 무한 잠재성으로부터 자신의 하보나 현존을 구별시킴으로써 그의 아들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공동 집행자의 행위 안에서 자신의 생각표현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계시되지 않은 이들 무한 잠재성들은 분별불가 절대자 안에 숨겨진 공간으로 남고, 그리고 신(神) 절대자 안에 신성하게 싸여 가려져 있으며, 한편으로 이 둘은 우주

절대자의 현재기능,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계시되지 않은
무한-합일, 안에서 하나가 된다.

0:11.2 (13.7) 영 기세의 잠재력과 조화우주 기세의 잠재력
모두는, 모든 실체의 풍성함이 체험적 성장으로 그리고
우주 절대자에 의한 체험인 것과 실존적인 것의 상호-
관련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에 따라, 진보하는 계시-실현의
과정 중에 있다. 균형을 잡고 있는 우주 절대자의 현존
덕분으로,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체험적 힘의 확장을
실현하고, 자신의 진화적 창조체들과의 정체화구현을
즐기며, 최극위, 궁극위 그리고 절대성의 차원위에서
체험적 신(神)의 확대를 성취한다.

0:11.3 (14.1) 분별불가 절대자와 신(神) 절대자를 각기 충분하게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 할 때, 추측되는 그들의 병합된 기능
또는 조화-협동될 현존이 우주 절대자의 행동으로
지칭된다.

0:11.4 (14.2) 1. 신(神) 절대자는 만능이신 활동자인 것처럼
보이는 반면, 분별불가 절대자는 최극적으로 합일되고
궁극적으로 조화-협동되는 우주들의 우주의, 나아가
만들어졌거나 만드는 중이거나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우주들의 우주의, 모든 것이-효과를 이루는 기능구조화 존재인 것처럼 보인다.

0:11.5 (14.3) 신(神) 절대자는 어떤 우주 상황에 대해서든지, 하위-절대 방법으로 응답할 수 없거나, 또는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이 절대자의 모든 응답은 , 실존(實在)의 현재 상태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미래적 영원의 무한 가능성의 관점에서도, 사물과 존재의 전체 창조의 복지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0:11.6 (14.4) 신(神) 절대자는 전체, 우주 아버지의 자유의지 선택에 의한 무한 실체로부터 분리된 잠재이며, 그리고 모든—실존적인 그리고 체험적인—신성 활동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잠재이다. 이것은 분별불가 절대자와 대비되는 본질특성을 갖춘 절대자이다; 그러나 우주 절대자는 모든 절대적 잠재를 에워싸는 것으로서 둘 모두에게 초(超)부가적이다.

0:11.7 (14.5) 2. 분별불가 절대자는 비(非)개인적이고 가외(加外)신성이며 비(非)신(神)화적이다. 그러므로 분별불가 절대자에게는 개인성과 신성 그리고 모든 창조자 특권들이 빠져있다. 사실이나 진리, 체험이나 계시,

철학이나 아(亞)절대성, 그 어떤 것도 우주 분별된-자격이 없는 이 절대자의 본성과 성격을 간파할 수 없다.

0:11.8 (14.6) 분별불가 절대자가 대우주에 널리 퍼지는, 그리고 분명하게 일곱 초우주들 넘어서 공간 영역들의 압도적 뻗어나감이 있는 기세 활동들과 전(前)물질적 진화들 속으로 나아가면서 동등한 공간 현존으로 확장하는 적극적 실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자. 분별불가 절대자는무조건적이고도 분별불가한 보편성, 지배성 그리고 시원성에 관한 형이상학적 궤변에서 나오는 추측에 입각한 철학적 개념의 단순한 소극론이 아니다. 분별불가 절대자는 무한에서의 적극적인 우주 전반적-통제이다; 이 전반적-통제는 무제한적 공간-기세이지만 그러나 생명과 마음과 영과 개인성의 현존에 의해 분명하게 조건 갖춰지고,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의지-반응과 목적이 있는 명령에 의해 더욱 더 조건 갖춰진다.

0:11.9 (14.7) 우리는 분별불가 절대자가, 형이상학의 범신(汎神)개념이나 또는 한때 과학에서 있었던 에테르설과 견줄 수 있는 차별되지 않고 모든 것에-스며드는 영향력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다. 분별불가

절대자는 무제한적 기세이며 그리고 조건 갖추어지는 신(神)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주의 영 실체들과 이 절대자와의 관계를 충분하게 깨닫지 못한다.

0:11.10 (14.8) 3. 우주 절대자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바로는, 우주 실체들을 신(神)화된 그리고 비(非)신(神)화된—개인성구현 될 수 있는 그리고 개인성구현 될 수 없는—가치들로서 차별시키는 우주 아버지의 절대 자유의지 활동에 필연적이었다. 우주 절대자는 그렇게 우주 실체를 차별시키는 자유의지 활동에 의해 창조되어진 긴장의 해소됨을 가리키는 신(神) 현상이며, 실존적 잠재성들의 이들 전체 총합의 연관적인 조화-협동자로 기능한다.

0:11.11 (15.1) 우주 절대자의 긴장-현존은, 분별불가한 무한성의 정태성(靜態性)으로부터의 자유의지 신성의 동태성(動態性) 분리 속에 선천적으로 있는 신(神) 실체와 비(非)신(神)화된 실체 사이의 차이점이 조절됨을 의미한다.

0:11.12 (15.2) 항상 기억하라: 잠재적 무한은 절대이고 영원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시간 속에 있는 실재적

무한은 부분적이라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非)절대이다; 뿐만 아니라 실재적 개인성의 무한도 분별불가한 신(神)안에서 제외하면 절대일 수 없다. 그리고 우주 절대자를 영존화 시키고, 그리하여 시간 속에 유한 개인성이 있는 것이 영적으로 가능하고 공간 속에 물질적 우주들이 있는 것이 조화우주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분별불가 절대자와 신(神) 절대자 안에 있는 무한 잠재의 차이이다.

0:11.13 (15.3) 우주절대자의 연관적 현존이 시간과 영원, 유한과 무한, 실체 잠재와 실체 실재성, 파라다이스와 공간, 사람과 하느님 사이의 긴장을 그토록 완전하게 평형 시키고 있는 오직 그 때문에, 유한자는 무한자와 함께 조화우주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 우주 절대자는 시간-공간 안에서 실존적이고, 초월된 시간-공간, 하위-무한 신(神) 현시활동의 우주들 안에서 실존적인, 진보하고 있는 진화적 실체의 지대에서의 정체화구현을 연관적으로 이룬다.

0:11.14 (15.4) 우주 절대자는 유한-절대적 가치들로서 그리고 체험적-실존적 접근의 가능성으로서 시간-영원

차원위에서 기능적으로 실현가능한 정태적-동태적 신(神)의 잠재다. 신(神)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양상은 정태적일 수 있고 잠재적일 수 있으며 연관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주(主)우주 안에서 기능하는 지능 개인성들에 관한 한 체험적으로 창조적이거나 진화적이지 않다.

0:11.15 (15.5) 절대자. 두 절대자—분별화된 그리고 분별불가한 절대자—는 그들이 마음을 가진 창조체들에 의해 관찰되다시피, 겉으로 보기에 아주 다른 반면, 우주절대자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신성하게 합일되어 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최종적 이해로는 셋 모두가 하나의 절대자이다. 하위-무한 차원들에는 그들이 기능적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무한 안에서는 그들이 하나이다.

0:11.16 (15.6) 우리는 절대자라는 용어를 어떤 것의 반대로 또는 어느 모든 것의 부정으로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주 아버지를 자아-결정력을 가진, 일종의 범신주의적이고 미(未)개인적인 신(神)으로 간주하지도 않는다. 절대자는, 우주 개인성에 관계하는 모든 것에서,

엄격하게 삼위일체에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신(神)에 지배되어 있다.

제 XII 장. 삼위일체들

0:12.1 (15.7) 기원적이고 영원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실존적이고 필연적이었다. 시작이-결코 없는 이 삼위일체는 아버지의 속박 받지 않는 뜻에 의해 개인적인 것과 비(非)개인적인 것으로의 구별이라는 사실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었으며 그의 개인적 뜻이 마음에 의해 이들 이원적 실체를 조화-협동하였을 때 사실화 되었다. 하보나-이후 삼위일체들은 체험적이다—주(主)우주 안의 힘-개인성 현시활동의 하위-절대의 그리고 진화적인 두 차원들의 창조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다.

0:12.2 (15.8)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영원한 신(神) 연합—은 실재성에서 실존적이지만 그러나, 모든 잠재들은 체험적이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는 무한을 포용하는 유일한 신(神) 실체를 이루며, 그리하여 최극자 하느님과 궁극자 하느님 그리고 절대자 하느님의 실재화구현이라는 우주적 현상이 발생한다.

0:12.3 (15.9) 첫 번째와 두 번째 체험적 삼위일체들, 하보나-이후 삼위일체들은 무한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파생된 신(神)들, 실존적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의해 창조되거나 또는 결국 생겨난 실체들의 체험적 실재화구현에 의해 진화된 신(神)들을, 포용하기 때문이다. 신성의 무한성은, 창조체와 창조자 체험의 유한성과 아(亞)절대성에 의해, 커지지는 않더라도, 언제나 강화되고 있다.

0:12.4 (16.1) 삼위일체들은 조화-협동 신(神) 현시활동의 관계와 사실들에 대한 진리이다. 삼위일체 기능은 신(神) 실체들을 에워싸고, 그리고 신(神) 실체들은 개인성구현으로 실현과 현시활동을 항상 추구한다. 그러므로 최극자 하느님과 궁극자 하느님 그리고 심지어는 절대자 하느님도 신성한 필연성들이다. 이들 세 체험적 신(神)들은 실존적 삼위일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 잠재적이었지만, 그러나 힘의 개인성으로 그들의 우주 창발은, 힘과 개인성의 우주에서 그들 자신의 체험적 기능에 일부 의존하고 그리고 하보나-이후 창조자와 삼위일체들의 체험적 성취에 일부 의존한다.

0:12.5 (16.2) 하보나-이후의 두 삼위일체들, 궁극자 그리고 절대자 체험적 삼위일체들은, 현재 충분하게 현시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우주 실현화의 과정에 있다. 이들 신(神) 관계적-연합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0:12.6 (16.3) 1. 궁극자 삼위일체는, 현재 진화하고 있는, 결국에는 최극존재, 최극 창조자 개인성들, 그리고 창조자도 아니고 창조체도 아닌 그들 독특한 우주 계획자들인, 아(亞)절대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로 구성될 것이다. 궁극자 하느님은, 거의 한계가 없는 주(主)우주 의 확대하는 장(場)에서 이 체험적인 궁극자 삼위일체의 통일의 신(神) 귀결로서, 결국에는 그리고 필연적으로 힘-구현하고 개인성구현할 것이다.

0:12.7 (16.4) 2. 절대자 삼위일체—두 번째 체험적 삼위일체—는, 지금 실재화구현의 과정에 있는데, 최극자 하느님과 궁극자 하느님 그리고 계시되지 않은 우주 운명 완료자로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삼위일체는 개인적 그리고 초(超)개인적 차원들 모두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비(非)개인적 경계까지 기능하며, 그리고 또 우주보편성

안에서의 이의 통일은 절대 신(神)을 체험적으로 만들 것이다.

0:12.8 (16.5) 궁극자 삼위일체는 완벽 안에서 체험적으로 통합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자 삼위일체의 그 어떤 충만한 통일의 가능성은 정말로 의심이 든다. 그렇지만 영원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신(神) 삼위일체화가 성취할 수도 있다는, 항상-존재하는 하나의 기억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극-궁극자의 언젠가의 출현과 그리고 가능한 절대자 하느님의 삼위일체화구현-사실화를 가정하고 있다.

0:12.9 (16.6) 우주의 철학자들은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실존적-체험적 삼위일체 무한을 가정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의 개인성구현을 마음속에 그리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스스로이신 이에 대한 개념적 차원 위에서의 우주 아버지의 개인과 동등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기원적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잠재적으로 무한한데 이는 우주 아버지가 실재로 무한하기 때문이다.

0:12.10 (16.7) 감사하는 말

0:12.11 (16.8) 완전한 중앙우주와 둘레를 돌고 있는 일곱 초우주에 대한 의도된 설명과 함께, 우주 아버지의 성격과 그의 파라다이스 연관-동료들의 본성에 대한 묘사와 관련되는 계속되는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우리는 진리와 그리고 조화-협동되는 필수지식을 밝히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에서, 제시되는 주제들에 적합한 가장 높은 존재하는 인간개념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지도하는 초우주 통치자들의 명령에 따라 안내를 받고 있다. 우리는 제시되는 개념이, 이전에 인간 마음으로 적절히 표현된 적이 없는 경우에만 오직 순수한 계시(啓示)에 의존할 것이다.

0:12.12 (17.1) 대대로 연속되는, 신성한 진리에 대한 행성에서의 계시들은, 영적가치에 대한 가장 높은 존재하는 개념을 새롭고도 증진된 행성지식에 대한 조화-협동의 일부분으로서 변함없이 기꺼이 포용한다. 따라서 하느님과 그의 우주 연관-동료들에 관한 이 계시들을 작성함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 가치와 우주 의미를 갖는 가장 높고 그리고 가장 앞선 행성지식을 대표하는 1,000개

이상의 인간개념을 이 글들의 기초로 선택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하느님을-아는 필사자들로부터 모은 이러한 인간개념들의 어떤 것들이, 우리가 계시하라고 지도받은 대로, 진리를 묘사하기에 불충분할 때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실체와 신성 그리고 그들의 초월적인 거주 우주에 대한 우리 자신이 가진 우월한 지식을 사용하여, 주저하지 않고 그것들을 보완할 것이다.

0:12.13 (17.2) 우리는 우리 임무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필사자 마음의 유한 개념들의 언어 상징으로 신성과 영원의 개념에 대한 언어를, 충분하게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마음속에 하느님의 단편이 거주하고 있음을, 그리고 진리의 영이 인간의 혼과 함께 머물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 영 기세들이 물질적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가치의 실체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주 의미들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있음을 더욱 더 알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확실하게 우리는, 신성한 현존인 이들 영이, 개인적 종교 체험—하느님을-의식함—의 계속-

진보하는 실체의 증진에 기여하는 모든 진리에 대한 영적
충당에 있어서, 사람을 도울 수 있음을 알고 있다.

0:12.14 (17.3) [파라다이스 신(神)들과 우주들의 우주에 관한
진리를 유란시아에 묘사하도록 배정된 초우주 개인성
무리단의 우두머리인 오르본톤 신성한 조언자에 의해
기록되었음]

유란시아 책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1 편 우주 아버지

1:0.1 (21.1) 우주 아버지는 모든 창조의 하느님이시며, 모든
사물과 존재의 첫째근원이며 중심이다. 우선 하느님을
창조자로서, 다음에는 통제자로서, 그리고 맨 나중에는
무한한 유지자로서 생각하라. 예언자가 “하느님, 당신은
홀로 계시며;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하늘을
창조하셨고 또한 하늘들의 하늘을 그곳의 모든 무리들과
함께 창조하셨으며; 이들을 보존하고 통제하십니다.
우주들은 하느님의 아들들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창조자는 빛으로 옷처럼 자신을 두르고 있으며 휘장처럼

하늘들을 펼치십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우주 아버지에 대한 진리가 인류에게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오직 우주 아버지의 개념—많은 하느님들 대신에 한 하느님—만이 필사자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신성한 창조자와 무한한 통제자로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1:0.2 (21.2) 무수한 행성 체계들은 모두 결국에는 여러 종류의 많은 지능(知能)창조체들, 하느님을 알 수 있고, 신성한 애정을 받아들이고, 보답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거주되도록 만들어졌다. 우주들의 우주는 하느님의 작품이며 그의 다양한 창조체들이 사는 곳이다. “하느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셨고 땅을 빚으셨으며; 그가 우주를 세우셨고 이 세상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으며; 거주되도록 그것을 빚으셨다.”

1:0.3 (21.3) 깨우친 세계들 모두는 모든 창조의 영원한 조물주이며 무한한 유지자인 우주 아버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경배한다. 우주 위의 우주마다 모든 의지 창조체들은 길고 긴 파라다이스로의 여행, 아버지 하느님께 도달하는 영원한 모험인 황홀한 투쟁을 시작했다. 시간의 자녀들의 초월적 목표는 영원한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 신성한 본성을 이해하는 것, 우주 아버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하느님을-아는 창조체들은 오직 한 가지 최극의 열망, 온몸을 불태우는 욕망 하나를 갖고 있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구체들에 있어서도, 그가 그의 개인성의 파라다이스 완전성으로 그리고 그의 의로운 최극위(最極位)의 우주 구체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그 같이 되어가는 것이다. 영원에 거하는 우주 아버지로부터 최극의 명령이 내려졌다,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 하라.” 파라다이스의 메신저들은 사랑과 자비로써 이 간곡하고도 신성한 권유를 여러 세대에 걸쳐 아래쪽으로 그리고 여러 우주를 거쳐 바깥쪽으로, 심지어는 유란시아의 인간 종족들과 같은 하등의 동물-기원 창조체에게까지 전해 왔다.

1:0.4 (22.1) 신성의 완전성을 달성하기 위해 분투하라는 이 장엄하고도 우주적인 명령은 완전성의 하느님의 모든 투쟁하는 창조체 창조의 첫 번째 의무이자 최고의 열망이 되어야 한다. 신성한 완전성을 달성하는 이 가능성은 모든 사람의 영원한 영적 진보의 최종적이고도 확실한 운명이다.

1:0.5 (21.2)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은 무한적 감각에서 볼 때 완전해지기를 도저히 바랄 수 없다, 그러나 인간존재들에게는, 이 행성에서 그들이 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무한한 하느님이 필사 사람을 위해 마련한 숭고하고도 신성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그들이 이 운명을 성취할 때, 자아-실현과 마음 달성에 속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들은, 하느님 자신이 그의 무한하고 영원한 구체에서 그러하듯이 신성한 완전성인 그들의 구체에서 그렇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완전성은, 물질적 감각에서는 보편적도 아니고, 지적인 파악에서 무제한적이거나, 혹은 영적 체험에서 최종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의지를 가진 신성, 개인성 동기부여의 완전성, 하느님-의식의 모든 유한한 측면에 있어서는 최종적이며 완벽하다.

1:0.6 (22.3) 이것이 ,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하라."라는, 신성한 명령의 진정한 의미로, 이는 필사 사람이 더욱 더 높은 차원의 영적 가치와 진정한 우주 의미들을 달성하도록 하는 길고도 황홀한 투쟁에서 앞으로 나가도록 계속 촉구하고 그리고 그를 안쪽으로 손짓하여 부른다. 우주들의 하느님을 찾기 위한 이 숭고한

탐구는 시간과 공간에 속하는 모든 세계들의 거주자들의
최극의 모험이다.

제 1 장. 아버지의 이름

1:1.1 (22.4) 우주들에 두루 알려진 아버지 하느님의 이름들 중,
그를 첫째근원이며 우주 중심이라고 칭하는 이름들이
가장 자주 발견된다. 첫째 아버지는 다른 우주들에서
그리고 같은 우주의 다른 구역들에서 다양한 이름들로
알려져 있다. 창조체가 창조자에게 부여한 이름들은
창조체의 창조자에 대한 개념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첫째근원이며 우주 중심은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으며, 단지 본성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만일 우리가
자신들을 이 창조자의 자녀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를 결국에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바로
본성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이 선택한 이름이고,
그리고 이것은 첫째근원이며 중심과 우리의 개인적
관계를 인식함으로서 성장한다.

1:1.2 (22.5) 우주 아버지는 우주들의 지능적 의지창조체에게
독단적 인식, 형식적 경배, 또는 노예 같은 봉사를 어떠한
형태로든 강요한 적이 없다. 시간과 공간 세계들에 있는

진화하는 거주자들은—그들 스스로의 가슴속에서
우러나와서—그를 인지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경배하여야 한다. 창조자는 그의 물질적 창조체들의 영적
자유 의지의 복종을 강요하거나 강제하기를 거부한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인간 의지의 애정 어린
전념은 하느님께 드리는 사람이 최고로 선택할 수 있는
선물이다; 사실상, 창조체의 그러한 봉헌은 사람이
파라다이스 아버지에게 주는 유일하게 가능한 참된
가치의 선물을 이룰 것이다. 사람은 하느님 안에서 살고,
활동하고, 존재한다; 아버지의 뜻에 머물어 깃들기 위한
이러한 선택을 제외하고 하느님에게 사람이 바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우주들의 지능적 의지
창조체들에 의해 내려진 그러한 결정들은, 창조자
아버지의 사랑에-지배된 본성에게 아주 만족을
가져다주는 그 진정한 경배의 실체를 이룬다.

1:1.3 (22.6) 너희가 장엄한 창조자를 실제로 알아내고, 신성한
통제자의 내주하는 현존의 실현을 체험하기 시작한 후에,
너희가 진실로 하느님-의식적이 되면, 그러면 너희의
깨우침에 따라서 그리고 신성한 아들들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방법과 방식에 따라서, 너희는 첫 번째 위대한

근원이며 중심에 대한 너희의 개념이 적절하게 표현되는 우주 아버지에 대한 이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세계들에서 그리고 다양한 우주들에서, 창조자는 무수한 명칭으로 알려지게 되는데, 관계성의 영적 면에서는 모든 이름이 같은 의미이지만, 그러나 어떤 주어진 영역에서 그의 창조체의 가슴에 자리 잡은 그의 보좌의 정도와 깊이를 말과 상징 안에서 알 수 있다.

1:1.4 (23.1) 우주들의 우주의 중심 가까이에서는, 우주 아버지가 일반적으로 첫째근원의 의미로 여길 수 있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공간의 우주들 안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우주 아버지를 지칭하는 용어는 우주 중심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다. 별들의 창조 속으로 더 멀리 밖으로 나가면, 너희의 지역우주의 본부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가 첫째 창조자 근원이며 신성한 중심으로 알려져 있다. 가까이에 있는 한 별자리에서 하느님은 우주들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무한한 유지자로, 그리고 동쪽에서는 신성한 통제자로 불리고 있다. 그는 또한 빛들의 아버지, 생명의 선물, 만능이신 분으로도 명명되어 왔다.

1:1.5 (23.2) 파라다이스 아들이 증여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세계들에서는, 하느님이 일반적으로, 개인적 관계, 부드러운 애정, 아버지로서의 헌신을 나타내는 어떤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너희의 별자리 본부에서는 하느님이 우주 아버지로 알려져 있으며,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 중에서 너희의 지역체계 안에 있는 다른 행성들에서는 그는 아버지들의 아버지, 파라다이스 아버지, 하보나 아버지, 그리고 영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증여의 계시를 통하여 하느님을 알게 된 자들은, 창조체-창조자 관계적-연합의 감동적 관계를 나타내는 정서적인 호소에 결국에는 승복하여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

1:1.6 (23.3) 성(性)적 창조체들이 사는 행성에서는, 지능 존재들의 가슴속에 부모 정서에 대한 충동들이 선천적으로 들어 있는 세계에서는, 아버지라는 용어는 영원한 하느님을 매우 잘 표현해 주는 아주 적합한 이름이다. 그는 너희의 행성, 유란시아에서 하느님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에게 주어진 이름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의의(意義)깊은 것은 너희가 그를 알아야

하고 것처럼 되고자 열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희의 옛 예언자들은 진심으로 그를 “영속(永續)하는 하느님”이라 불렀으며 그를 “영원 속에 거(居)하는 자”로 묘사하였다.

제 2 장. 하느님의 실체

1:2.1 (23.4) 하느님은 영 세계의 최초 실체이다; 하느님은 마음 구체들 안에서 진리의 근원이다; 물질적 영역들에 두루 모든 것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모든 창조된 지능존재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하나의 개인성이고, 우주들의 우주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영원한 실체의 첫째근원이며 중심이다. 하느님은 사람 같지도 기계 같지도 않으시다. 첫째 아버지는 우주의 영이고, 영원한 진리이며, 무한한 실체이고, 아버지 개인성이다.

1:2.2 (23.5) 영원한 하느님은 이상화된 실체 또는 우주 개인성구현보다 더욱 무한하다. 하느님은 단순히 사람의 최극의 욕망, 필사자가 추구할 대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은 단지 정의(正義)의 힘-잠재적이라는, 어떤 개념도 아니다. 우주 아버지는 자연계에 대한 동의어가 아닐 뿐 아니라, 개인화된 자연 법칙도 아니다. 하느님은 초월적 실체이지, 단순한 최극 가치에서의 사람의 전통적

개념이 아니다. 하느님은 영적 의미에서의 심리적 초점화구현이 아니며, “사람의 가장 고귀한 작품”도 아니다. 하느님은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개념들 중의 일부 혹은 전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이다. 그는 지상에서 영적 평화를 누리고, 죽음에서 개인성의 생존을 체험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하는 개인이고 사랑 넘치는 아버지이다.

1:2.3 (24.1) 하느님의 실존(實在)의 실재성은 사람의 필사자 마음속에서 살며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생존되는 불멸혼의 진화를 도와주도록 파라다이스로부터 보내진 영감시자의 신성한 현존의 내주를 통한 인간의 체험 속에서 실증된다. 인간 마음속에 있는 이 신성한 조절자의 현존은 세 가지 체험적 현상에 의하여 드러난다:

1:2.4 (24.2) 1. 하느님을 아는 지적 수용능력—하느님-의식.

1:2.5 (24.3) 2. 하느님을 찾으려는 영적 욕구—하느님을-추구하는 것.

1:2.6 (24.4) 3. 하느님처럼 되고자 갈망하는 개인성—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전심을 다한 욕망.

1:2.7 (24.5) 하느님의 실존은 과학적 실험이나 논리적 추론의 순수 이성에 의해서는 결코 증명될 수 없다. 하느님은 오직 인간 체험의 영역 안에서만 실현되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실체에 대한 참된 개념은 논리에 대해서 합당한 것이고, 철학에 대해서 찬동할 만한 것이며, 종교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이고 그리고 개인성 생존의 그 어떤 소망에 대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1:2.8 (24.6) 하느님을 아는 자들은 그의 현존한다는 사실을 체험하였다; 이렇게 하느님을-아는 필사자들은 그들의 개인적 체험 속에 살아있는 하느님의 실존에 대한 긍정적 증거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오직 인간 존재가 다른 이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실존은 인간 마음에서의 하느님-의식과, 우주 아버지로부터 거져주는 선물로서 사람에게 증여되어 있고 필사자 지성 안에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에서의 하느님-현존 간의 접촉을 통해서만 실증이 가능하다.

1:2.9 (24.7) 이론적으로는 너희가 하느님을 창조자로 생각할 수 있고, 그는 파라다이스와 완전성의 중앙우주를 몸소 창조하신 이다,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은 모두 창조자

아들들의 파라다이스 집단에 의하여 창조되고 조직된다. 우주 아버지는 네바돈이라는 지역우주의 몸소 창조자가 아니며; 너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그의 아들 미가엘의 창조다. 비록 진화하는 우주들을 아버지가 몸소 창조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그들 우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일정한 물질적, 마음적 그리고 영적 에너지들을 통한 현시활동 속에서 그는 그들을 통제한다. 아버지 하느님은 파라다이스 우주의 개인적 창조자이며, 영원한 아들과 관계적-연합하여, 다른 모든 개인적 우주의 창조자들의 창조자이다.

1:2.10 (24.8) 물질적 우주들의 우주에 있는 물리통제자로서,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영원한 파라다이스 섬의 원형틀들 안에서 기능하며, 그리고 이 절대 중력 중심을 통하여 영원한 하느님은 중앙우주와 그리고 우주들의 우주에 두루 물리적 차원의 조화우주적 전반적-통제를 균등하게 행사한다. 마음으로서, 하느님은 무한한 영의 신(神) 안에서 기능하며; 영으로서, 하느님은 영원한 아들의 개인 안에서 그리고 영원한 아들의 신성한 자녀들의 개인 안에서 현시된다. 이러한 첫째근원이며 중심과 파라다이스의 조화-협동 개인들과 절대자들과의

상호관계는, 모든 창조에 두루 그리고 그에 대상되는 모든 차원에 걸친 우주 아버지의 직접적인 개인적 활동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 그의 단편화된 영의 현존을 통하여, 창조자 아버지는 그의 창조체 자녀들과의 그리고 그가 창조한 우주들과의 즉각적인 접촉을 유지한다.

제 3 장. 하느님은 우주의 영

1:3.1 (25.1) “하느님은 영이다.” 그는 한 우주의 영적 현존이다. 우주 아버지는 한 무한한 영적 실체이다; 그는 “주권자이며, 영원하고, 불멸적인, 불가시적인, 그리고 유일하게 참된 하느님이다. 비록 너희가 “하느님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너희가 “그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고—그의 영원한 현존이 머무르는 중심으로부터 보내진 신비의 감시자가 내주된다고—불린다고 해서 형태와 모습에서 아버지가 너희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영 존재들은 비록 그들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삶과 피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1:3.2 (25.2) 옛 선지자는 “보라, 그가 내 옆에서 걸어가도 나는 그를 보지 못한다; 또한 그가 지나가도 나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아마도 계속해서 하느님의 일들을 지켜보고, 그의 장엄한 행위에 대한 물질적 증거들에 대하여 고도로 의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신성의 가시적 현시활동을 우리가 거의 보지 못하며, 심지어는 인간 속에 내주하는 파견된 그의 영의 현존을 쳐다볼 수도 없다.

1:3.3 (25.3) 우주 아버지는 물질적 장애들과 제한된 영적 자질들을 가진 저급한 창조체들로부터 떨어져서 자신을 숨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상황은 오히려 다음과 같다: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어떠한 필사자도 나를 보고서는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질적 어떤 사람도 영 하느님을 쳐다보고서는 그의 필사 실존을 보존할 수 없다. 신성한 개인성현존의 영광과 영적 찬란함은, 비교적 낮은 영 존재들의 집단이나 또는 어떤 계층의 물질적 개인성들도 접근할 수 없다. 아버지의 개인적 현존의 영적 광채는 “어떠한 필사 사람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물질적 창조체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는 빛이다.” 그러나 영성화(靈性化)된 마음의 신앙-시각으로 그를 식별하기 위해 육신 계층의 눈으로 하느님을 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

1:3.4 (25.4) 우주 아버지의 영 본성은 그의 공존하는 자아인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과 함께 충분히 공유된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들의 공동 개인성 조화-협동자인
무한한 영과 우주적이고도 영원한 영을 충만하게 그리고
남김없이 비슷한 방식으로 공유한다. 하느님의 영은,
자체적으로 그리고 저절로, 절대적이다; 아들 안에서
그것은 분별불가하며, 영 안에서 우주적이며, 그들 모두
안에서 그리고 그들 모두에 의하여 무한하다.

1:3.5 (25.5) 하느님은 우주적인 영이다; 하느님은 우주적인
개인이다. 유한 창조의 최극 개인적 실체는 영이다; 개인적
조화우주의 궁극적 실체는 아(亞)절대 영이다. 오로지
무한 차원들만이 절대적이며, 그런 차원들에서만 물질,
마음, 그리고 영 사이에 하나가 되는 최종이 있다.

1:3.6 (25.6) 우주들 안에서 아버지 하느님은 잠재적으로 물질,
마음, 영에 대한 전반적-통제자이다. 하느님은 오직 그의
멀리-퍼지는 개인성 순환회로에 의해서만,
의지창조체들로 이루어진 그의 광대한 창조의 개인성들과
직접 관계를 맺지만, 그는 (파라다이스 밖에서는) 오직
그의 단편화된 실존개체들의 현존 안에서, 우주들 안에

널리 퍼진 하느님의 뜻으로만 접촉이 가능하다. 시간 속의 필사자들의 마음속에 갇히고, 그곳에서 살아남는 창조체의 불멸의 혼의 진화를 육성시키는 이 파라다이스 영은 우주 아버지의 본성과 신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진화하는 창조체의 마음은, 지역우주들 안에서 기원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겠다는 창조체의 선택의 필연적 결과인 영적 달성이라는 그 체험적 변환을 성취함으로써 신성한 완전성을 얻어야만 한다.

1:3.7 (26.1) 사람의 내적 체험 속에서, 마음은 물질과 결합되어 있다. 물질적으로-연계된 이러한 마음은 필사자의 죽음에서 생존할 수 없다. 생존의 기법은 인간 의지의 그러한 조절들 안에 그리고 그러한 하느님-의식 지성이 점차적으로 영의 가르침을 받고 결국에는 영의 인도를 받게 되는 필사자 마음 안에서의 그 변환들 속에 포용되어 있다. 물질 관계적-연합으로부터 영 연합을 향한 인간 마음의 이 진화는 필사 마음의 잠재적인 영 위상을 불멸의 혼인 모론시아 실체들로 변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물질에 종속된 필사자 마음은 점점 더 물질적으로 되는 운명에 있고 결국에는 개인성의 소멸을 당한다; 영에

종속되는 마음은 점점 더 영적으로 되는 운명에 있고, 궁극적으로 생존시키고 인도하는 신성한 영과 하나 됨을 성취하며,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성 실존의 생존과 영원을 달성하게 되어 있다.

1:3.8 (26.2) 나는 영원자로부터 왔고, 우주 아버지가 현존하는 곳에 반복하여 되돌아갔었다. 나는 첫째근원이며 중심인 영원하고 우주적인 아버지의 실재성과 개인성에 대해 알고 있다. 나는 위대한 하느님이 절대이고 영원하며 그리고 무한하며 또한 그는 선하며 신성하며 그리고 자비하다는 것을 안다. 나는 위대한 선언들의 진리를 알고 있다: “하느님은 영”이고 “하느님은 사랑”이며, 이 두 속성들은 영원한 아들 안에서 우주에 가장 완벽하게 밝혀져 있다.

제 4 장. 하느님의 신비

1:4.1 (26.3) 하느님의 완전성의 무한성이 그렇게 그를 영원히 신비롭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다. 또한 하느님의 불가해한 모든 신비들 중 가장 큰 것은 필사 마음 속에 있는 신성한 내주(內住) 현상이다. 우주 아버지가 시간의 창조체들에게

머무는 방식은 모든 우주 신비들 중 가장 심오한 것이다;
사람마음 속에 있는 신성한 현존은 신비들 중의 신비이다.

1:4.2 (26.4) 필사자들의 물질 육체는 “하느님의 성전”이다. 비록
주권자 창조자 아들들이, 그들의 거주세계 창조체에
가까이 다가가서 “모든 사람들을 그들 자신에게 이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의식의 “문에 서서” “그리고
두드리고”그리고는 “ 자신들의 가슴의 문을 여는”모든
이에게 들어가는 것을 기뻐할지라도; 창조자 아들과
그들의 필사 창조체들 사이에 이 친밀한 개인적 교제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사 사람들은
자신들 속에 실재적으로 내주하는, 하느님 자신으로부터
온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몸은
하느님의 성전인 것이다.

1:4.3 (26.5) 너희가 여기 아래에서 끝이 날 때, 땅에서 일시적
형태로 너희의 여정을 다 마쳤을 때, 육신으로서의 시험
여행이 완결되어질 때, 필사자 장막을 이루는 티끌이 “원래
유래되었던 땅으로 되돌아 갈” 때; 그때에 내주하는 “영이
그것을 주셨던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밝혀진다.
하느님의 한 단편(斷片), 신성의 한 부분이며 조각이 이

행성의 각각의 도덕적 존재 안에 머무른다. 그것은 소유로는 아직 너희들것이 아니지만, 만일 너희가 필사 실존에서 생존된다면 너희와 하나가 되도록 고안하여 의도되어 있다.

1:4.4 (26.6) 우리는 계속해서 하느님의 이 신비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그의 무한한 선, 끝없는 자비, 비할 데 없는 지혜, 숭고한 성격의 끝없는 진리의 장관(壯觀)이 더욱 더 펼쳐지고 있음에 당혹하고 있다.

1:4.5 (26.7) 신성한 신비는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사이에,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사이에, 시간-공간 창조체와 우주 창조자 사이에,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 사람의 불완전함과 파라다이스 신(神)의 완전함 사이에 존재하는 선천적 차이에 들어 있다. 우주적 사랑의 하느님은 신성한 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선함의 본질특성들을 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 창조체의 수용능력의 충만함에 닿은 데까지 그의 모든 각 창조체에게 어김없이 자신을 현시한다

1:4.6 (27.1) 우주 아버지는, 우주들의 우주에 속한 모든 구체와 각각의 세계에 있는 모든 영 존재와 필사 창조체들에게,

그러한 영 존재들에 의해 그리고 그러한 필사 창조체들에 의해 식별되고 이해될 수 있는 자신의 자비롭고 신성한 자아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하느님은 개인들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다. 우주의 어느 자녀가 어느 주어진 시기에 느끼는 신성한 현존은, 초(超)물질 세계의 영 실재성들을 받아들이고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창조체의 수용능력에 의해서만 제한될 뿐이다.

1:4.7 (27.2) 인간의 영적 체험 안에 있는 실체로서의 하느님은 신비가 아니다. 그러나 영 세계의 실체들을 물질적 계층에 속하는 물리적 마음들에게 쉽게 설명을 시도할 때 신비가 나타나는데: 이 신비는 너무나 미묘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하느님을-아는 필사자의 신앙-파악으로서만 유한으로 무한을 인식하는, 시간과 공간의 물질적 세계들에서 진화하는 필사자들이 영원한 하느님을 식별하는 철학적 기적을 성취할 수 있다.

제 5 장.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

1:5.1 (27.3) 하느님의 위대하심, 그의 무한성으로, 그의 개인성을 흐리게 하거나 빛을 잃게 하지 말라. "귀를

계획하신 분이, 어찌 듣지 못하실 수 있겠는가? 눈을 지으신 분이, 어찌 보지 못하시겠는가?” 우주 아버지는 신성한 개인성의 극치이다; 모든 창조에 두루 개인성의 근원이자 운명이다. 하느님은 무한하시며 동시에 개인적이다; 그는 무한한 개인성이다. 아버지는, 비록 그의 개인 무한성이 그를 모든 물질적이고 유한한 존재들의 충분한 이해를 넘어서 언제까지나 있게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한 개인성이다.

1:5.2 (27.4) 하느님은 인간 마음으로 납득되는 개인성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개인성보다 훨씬 그 이상이다; 그는 초(超)개인성에 대한 어떤 가능한 개념보다도 더더욱 그 이상이다. 아무튼 존재의 실체에 대한 최대 개념이 개인성의 관념과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물질적 창조체의 마음들과 더불어, 신성한 개인성의 그러한 불가해한 개념을 논의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헛된 일이다. 우주 창조자에 대하여 물질적 창조체에게 최고 가능한 개념은 신성한 개인성에 대한 드높여진 관념의 영적 이상들 안에 포용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느님은 개인성에서의 인간의 개념보다 훨씬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똑같이 우주

아버지가 영원하고, 무한하며, 진실하고, 선하며 그리고 아름다운 개인성 이하의 그 어떤 것도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1:5.3 (27.5) 하느님은 자신의 어떤 창조체에게도 숨지 않고 있다. 존재들의 그 많은 계층들이 그에게 접근할 수 없는 이유는, 단지 그가 "물질적 어떤 창조체들도 접근할 수 없는 빛 속에 거(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성한 개인성의 광대함과 장엄함은 진화하는 필사자들의 미(未)완전한 마음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 그는"손바닥으로 바다를 가늠하고, 손 뺨으로 우주를 가늠한다. 지구 순환계 위에 앉아있고,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고 이것을 거할 우주로 확장 시킨다," " 네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으며, 그들의 세계들을 순서에 따라 있게 하고, 저희 모두를 각자의 이름으로 부르는 그 분을 바라보라"; 그리고"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것들은, 만들어진 것들로 일부 납득된다."는 말이 사실이다. 오늘날, 너희의 있는 그대로, 너희는 그의 각가지 그리고 다양한 창조를 통해,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및 그들의 수많은 종속들의 계시와 직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조물주를 식별하여야 한다.

1:5.4 (28.1) 비록 물질적 필사자들이 하느님의 개인을 볼 수 없다고 해도, 그들은 그가 한 개인임을 확신하면서 기쁨을 향유해야 한다; 우주 아버지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하급의 거주자들에게 영원한 영적 진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묘사하는 그 진리를; “그의 자녀들 가운데서 기뻐한다.”는 것을 신앙에 의해 받아들여야 한다; 하느님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사랑이시며 무한한 창조자 개인성을 이루는 초인간적이고 신성한 속성들 중 그 어느 것에 있어서도 모자람이 없다.

1:5.5 (28.2) 지역 창조계에 있어서 (초우주들의 성원들을 제외하고) 하느님은 지역우주들의 주권자들인 동시에 거주하는 자들의 세계의 아버지들인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들 이외에는 개인적 또는 거주적 형태로서 현시활동하지 않는다. 만일 창조체의 신앙이 완전하다면, 그는 창조자 아들을 보았을 때 그가 이미 우주 아버지를 본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를 추구함에 있어서, 그는 아들 이외의 어떤 다른 것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필사 사람은 완벽한 영 변환과 그리고 실재적 파라다이스 달성을 성취할 때까지는 결코 하느님을 볼 수 없다.

1:5.6 (28.3)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들의 본성들 속에는,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무한 본성을 갖는 우주 절대적의 분별불가한 잠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주 아버지는 창조자 아들들 속에 모든 면에서 신성하게 현존하고 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이다. 미가엘 계층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완전한 개인성들이고, 빛나는 새벽별에서부터 아래로는 진행되고 있는 동물 진화의 가장 낮은 인간 창조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우주 개인성의 원형들이기도 하다.

1:5.7 (28.4) 하느님이 없이는 그리고 그의 위대하고 중심적인 개인이 없었더라면, 이 광대한 우주들 중의 우주에 두루, 어떠한 개인성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은 개인성이다.

1:5.8 (28.5) 하느님이 영원한 힘, 장엄한 현존, 초월적 이상, 영광스러운 영(靈)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모든 것들인 동시에 무한하게 그 이상(以上)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실로 그리고 영속적으로 완전한 창조자 개인성, "알 수 있고 알려질 수 있는" 개인, "사랑하고 사랑 받을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분이다; 다른 인간들이 알려져 온 것처럼, 하느님의 친구로서 너희는 알려질 수 있다. 그는 실제 영이며 영적 실체이다.

1:5.9 (28.6) 우리가 우주에 두루 드러난 우주 아버지를 볼 때; 우리가 그의 수많은 창조체들 속에 내주하는 그를 식별할 때; 우리가 그의 주권자 아들들의 개인들 속에서 그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까이서 멀리서, 여기저기에서 그의 신성한 현존을 계속 감지할 때, 그의 개인성의 시원성에 대해 의심하거나 의문을 갖지 말라. 멀리-퍼지는 이 모든 분배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한 참 개인으로 남아 있으며, 우주들의 우주에 두루 흩어져 있는 헤아릴 수 없는 그의 창조체들의 무리들과 개인적 관계를 영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

1:5.10 (28.7)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에 대한 관념은 주로 계시를 통해 인류가 알게 된 하느님에 대한 확대되고 더욱 진실한 개념이다. 이성, 지혜, 종교적 체험 등이 모두 하느님의 개인성을 암시하고 포함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모두 합하여 이것을 타당하게 하지는 않는다. 심지어는 내주하고 있는 조절자도 전(前)개인적이다. 어떤 종교든지

그 진리와 성숙도는 하느님의 무한한 개인성에 대한 그 개념과 신(神)의 절대 합일체에 대한 그 파악에 직접 비례한다. 따라서 개인적 신(神)에 대한 관념은, 종교가 하느님의 합일체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확립한 이후 종교적 성숙의 척도가 된다.

1:5.11 (29.1) 원시종교는 많은 개인적 하느님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주로 사람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계시(啓示)는, 첫째 원인의 과학적 설정 안에서 단지 가능하고, 그리고 우주 합일체의 철학적 관념 안에서는 오직 일시적으로만 제시되어지는, 하느님에 대한 개인성 개념이 타당함을 확인시켜 준다. 어떤 개인이라 해도 오직 개인성 접근에 의해서만 하느님의 합일체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개인성을 부인하면 결국 물질주의나 범신주의나 라는 두 철학적 딜레마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1:5.12 (29.2) 신(神)을 깊이 사색할 때, 개인성 개념은 유형론(有形論)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물질적 신체는 사람이나 하느님의 개인성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이 유형론의 잘못은 인간 철학의 양극단에서

나타나 있다. 물질주의에서는, 사람이 죽음에 따라 육체를 잃어버려, 그는 하나의 개인성으로의 존재하기가 끝나며; 범신주의에서는 하느님은 육체가 없으므로, 따라서 그는 개인이 아니다. 진보하는 개인성의 초인간적 전형은 마음과 영의 연합 안에서 기능한다.

1:5.13 (29.3) 개인성이란 단순히 하느님의 속성 중 하나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조화-협동된 무한한 본성과, 그리고 완전한 표현의 영원성과 우주적 보편성으로 전시되는 그러한 신성한 의지와 그의 전체성을 상징한다. 최극의 의미에서 개인성이란 우주들의 우주에 대한 하느님의 계시이다.

1:5.14 (29.4) 하느님은, 영원하고 보편적이며 절대적이고 무한하기 때문에, 지식이 자라거나 지혜가 늘어나지 않는다. 하느님은 유한한 사람이 추측하거나 이해하는 것처럼 체험을 획득하지도 않지만, 그는 자신의 영원한 개인성의 영역 안에서 부단히 자아-실현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즐기는데, 이것은 계속 진화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유한한 창조체들이 새로운 체험을 쌓아 가는 것과 유사하며 또 어떤 면에서 그렇게 비교될 수도 있다.

1:5.15 (29.5) 넓은 우주 안에서 신성한 도움에 의해 영적으로 완전한 높은 세계로 오르려고 모색하는 불완전한 모든 혼의 개인성 투쟁에 우주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한한 하느님의 절대적 완전성은 그로 하여금 완전함의 분별불가한 최종이라는 극심한 한계에 부딪쳐 고통을 받게 만들 것이다. 우주들의 우주에 두루 모든 영적 존재와 모든 필사 창조체의 이러한 점진적 체험은, 끝없는 자아-실현의 끝없는 신성한 순환에서의 아버지의 계속-확대하는 신-의식의 일부이다.

1:5.16 (29.6) “너희의 모든 고통 속에서 그가 고통을 받고 있고,” “너희가 승리하는 모든 경우에 그도 너희 속에서 그리고 너희와 함께 승리한다.”라는 말들은 정말로 사실이다. 그의 전(前)개인적인 신성한 영은 너희의 실제적인 일부분이다. 파라다이스 섬은 우주들의 우주의 모든 물질적 형태변형에 응답한다; 영원한 아들은 모든 창조의 모든 영 충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공동 행위자는 팽창하는 조화우주에 대한 마음 표현 모두를 함유하고 있다. 우주 아버지는 시간과 공간에 속하는 전체 진화 창조의 모든 실존개체, 존재, 개인성의 상승하는 영들 그리고 확대하는 마음들의 점진적 투쟁이라는 개별적 체험 전체를 신성한

의식의 총만 속에서 깨달아 실현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로 사실이다.

제 6 장. 우주의 개인성

1:6.1 (29.7) 인간의 개인성은 신성한 창조자 개인성에 의해 투영된 시간-공간 형상-그림자이다. 그리고 어떤 실재성도 그것의 그림자를 탐색하는 것으로는 충분하게 이해될 수 없다. 그림자는 참된 실체에 의해 해석되어야만 한다.

1:6.2 (30.1) 하느님은 과학에 있어서는 원인, 철학에 있어서는 관념, 종교에 있어서는 개인, 나아가 사랑 넘치는 하늘아버지이다. 하느님은 과학자에게는 시원적 기세, 철학자에게는 합일체의 가설, 종교인에게는 살아있는 영적 체험이다.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에 대한 사람의 부적절한 개념은 우주에서 사람의 영적 진보를 통해서만 향상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순례자들이 드디어 파라다이스에 살아 계시는 하느님의 신성한 포옹에 도달하였을 때에만 진정으로 적절하게 될 것이다.

1:6.3 (30.2) 하느님과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개인성에 대한 정반대 관점들을 결코 놓치지 마라. 사람은

유한에서 무한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개인성을 이해하며; 하느님은 무한에서 유한을 바라보신다. 사람은 가장 낮은 유형의 개인성을 갖고 있다; 하느님은 최고자, 더 나아가 최극이며, 궁극이며 절대인 개인성을 소유하신다. 그러므로 신성한 개인성에 대한 더 나은 개념들은, 인간의 개인성에 대한 향상된 관념, 특히 창조자 아들인 미가엘의 유란시아 증여 삶 속에서의 인간 및 신성한 개인성의 증진된 계시, 그 출현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만 했다.

1:6.4 (30.3) 필사 마음 속에 내주하는 전(前)개인적인 신성한 영은, 바로 그 현존 속에서, 그것의 실재적 실존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지만, 그러나 신성한 개인성에 대한 개념은 다만 진정한 개인적 종교 체험의 영적 통찰력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 모든 개인은, 인간적이든 신성하든, 그 개인의 외부적 반응 또는 물질적 현존과 매우 다르게 이해되고 알려질 수 있다.

1:6.5 (30.4) 어느 정도의 도덕적 유사성과 영적 조화는 두 개인들 사이의 친구 관계에 필수이다; 사랑 넘치는 개인성은 사랑이 없는 개인에게 결코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 신성한 개인성을 아는 것에 다가가는 것조차, 모든

사람의 개인성 자질들이 온통 그 노력에 바쳐져야만 한다;
건성으로 하는, 어중간한 헌신은 소용없는 것이다.

1:6.6 (30.5) 사람이 자신을 더 완벽하게 납득하면 할수록
그리고 자기 동료들의 개인성 가치를 인정하면 할수록,
그는 기원 개인성에 대해 더욱 더 알고 싶어질 것이고,
하느님을-아는 그러한 인간은 더욱 더 진지하게 기원
개인성처럼 되려고 분투할 것이다. 하느님에 관한
의견들에 대하여 너희가 논쟁을 벌일 수도 있지만, 그와
함께 그리고 그의 속에서의 체험은 모든 인간적 논란과
단순한 지적 논리를 넘어서 그 위에 존재한다.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을 납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교화(敎化)와 상호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영적
체험을 묘사한다.

1:6.7 (30.6) 우주를 알 수 있다, 그것은 이해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우주가 마음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리고
개인성으로 관리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그들이 인간적이든 초인간적이든, 다른 마음 현상들을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사람의 개인성이 우주를

체험할 수 있다면, 그 우주 어딘가에는 신성한 마음과 실재적 개인성이 숨겨져 있다.

1:6.8 (30.7) 하느님은 영—영 개인성—이다; 사람도 역시 영—잠재적인 영 개인성—이다. 나사렛 예수는 인간 체험 속에서 영 개인성의 이 잠재적인 것의 충만한 실현을 달성하였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그의 삶은 하느님의 개인성에 대한 사람의 가장 실제적이고 이상적인 계시가 되고 있다. 비록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이 오직 실재적인 종교체험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수의 이 땅의 삶을 통해, 한 진정한 인간 체험 속에서 하느님의 개인성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실현과 계시의 완전한 실증에서 우리는 영감을 얻는다.

제 7 장. 개인성 개념의 영적 가치

1:7.1 (31.1) 예수가 “살아 계시는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개인적인 신(神)-하늘에 계신 아버지—을 의미한 것이었다. 신(神)의 개인성에 대한 개념은 동료관계를 촉진시키며; 그것은 지능적 경배를 장려한다; 그것은 참신한 신뢰감을 증진시킨다. 상호작용은 비(非)개인적인 사물들 사이에도 이루어 질 수 있지만, 동료관계는 그렇지

못하다. 하느님과 사람과의 관계처럼, 아버지와 아들 간의 동료관계 관계도 양측이 개인들이 아니라면 결코 누릴 수 없다. 비록 이 개인적 교제가 바로 그 생각 조절자와 같은 미(未)개인적 실존개체의 현존에 인해 크게 촉진될 수 있다 하더라도, 오직 개인성들만이 서로 교통할 수 있다.

1:7.2 (31.2) 사람은, 한 방울의 물이 대양과 합일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과 연합을 성취하지는 못한다. 사람은 점진적 상호보답적인 영적 교제에 의해, 개인적 하느님과의 개인성 상호교감에 의해, 그리고 신성한 뜻과의 충심어리고 지능적인 순응을 통해 점점 더 신성한 본성에 도달함으로써 신성한 연합을 달성한다. 이러한 숭고한 관계는 오로지 개인성들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1:7.3 (31.3) 진리에 관한 개념은 개인성과는 별도로 다루어질 수 있고, 미(美)에 관한 개념은 개인성 없이도 존재할 수 있지만, 신성한 선(善)의 개념은 오직 개인성에 대한 관계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오직 개인만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 받을 수 있다. 미와 진리조차도 그것이 사랑 넘치는

아버지, 개인적인 하느님의 속성들이 아니라면 생존
소망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1:7.4 (31.4)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이 가장 시원적이고
변함없으며 만능이시며 완전하면서도, 동시에 계속-
변화하고, 분명히 법칙에 제한되는, 상대적 불완전에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우주에 둘러 싸여 있는지를 충분히
납득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 체험 속에서 그러한 진리를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들 그리고 우리의 환경 모두의
계속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성의 정체성과 의지의
합일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7.5 (31.5) 궁극의 우주 실체는 수학, 논리, 철학이 아니라,
개인적인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점차적으로 순응하는
각자의 체험에 의해서만 파악된다. 과학 또는 철학뿐만
아니라 신학조차도 하느님 개인성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신앙 아들들의 개인적 체험만이
하느님의 개인성의 실재적인 영적 실현을 가져올 수 있다.

1:7.6 (31.6) 우주 개인성의 상급 개념들은: 정체성, 자아-의식,
자아-의지, 그리고 자아-계시에 대한 가능성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은 나아가,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개인성 관계적-연합 안에서 존재하듯이 것처럼, 다르거나 동등한 개인성들과의 동료관계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적-연합의 절대적 합일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신성(神性)은 불가분성, 합일체로 알려진다. “주님 하느님은 하나이다.” 개인성의 불가분성은 하느님이 필사 사람의 가슴속에서 살도록 그의 영을 증여하는 일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인간 아버지의 개인성 불가분성이 필사 아들과 딸들을 낳는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다.

1:7.7 (31.7) 합일체의 개념과 관련된 이 불가분성 개념은 신(神) 궁극위에 의해 시간과 공간이 모두 초월됨을 포함한다; 따라서 시간이나 공간은 절대적이거나 무한할 수 없다.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모든 마음, 모든 물질, 그리고 모든 영을 분별불가하게 초월하는 그 무한자이다.

1:7.8 (31.8)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관한 사실은 결코 신성한 합일체의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파라다이스 신(神)의 세 개인성들은 모든 우주 실체 반응들과 모든 창조체 관계들에 있어서, 하나로 실존한다. 영원한 이 세 개인들도 신(神)의 불가분성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우주

문제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필사 마음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실망할 필요가 없으며; 이 모든 일들은 파라다이스 존재들인 나의 집단에 속한 높은 개인성들에게조차도 전적으로 뚜렷하지는 않다. 파라다이스로 오랜 필사자 오름이 계속되는 신(新)시대를 거치면서 너희의 마음이 점진적으로 영성화 됨에 따라 신(神)과 관련된 이 심오한 진리들이 점점 뚜렷해 질 것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라.

1:7.9 (32.1) [네바돈 지역우주의 영역을 넘는 관련사들을 다루어야 하는 이 다가오는 계시의 일부를 감독할 목적으로, 일곱 번째 초우주 본부인 유버사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들에 의해 배정된 천상의 개인성 무리단의 한 일원인, 신성한 조언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나는 하느님의 본성과 속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이 글을 후원하도록 위임받았는데, 왜냐하면 거주하는 어떤 세계든지 그러한 목적을 위해 가능한 정보의 최고 근원을 내가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일곱 초우주들 모두에서 신성한 조언자로 일해 왔었고, 오랫동안 모든 사물들의 중심인 파라다이스에 거주해 왔다. 나는 우주 아버지의 즉각적인

개인적 현존 안에서 머무는 최극의 기쁨을 여러 번
누려왔다. 나는 도전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의
본성과 속성에 대한 실체와 진리를 묘사한다; 나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제 2 편 하느님의 본성

2:0.1 (33.1) 하느님에 대하여 사람의 가능한한 가장 높은
개념이, 하나의 시원적이고도 무한한 개인성에 대한
인간의 관념과 이상 속에 포용되므로 그만큼, 신(神)의
성격을 구성하는 신성한 본성의 어떤 특징들을 공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고, 나아가 도움을 준다는 것이 입증될
수도 있다. 하느님의 본성은 네바돈의 미가엘이 육신으로
있는 동안 그의 다양한 가르침들 속에서 그리고 그의
장엄한 필사 삶에서 펼쳐 보였던 아버지에 대한 계시로
가장 잘 납득될 수 있다. 또한 만일 사람이 스스로를
하느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파라다이스 창조자를 참된
영적 아버지로 우러러 본다면 신성한 본성은 사람에
의하여 더욱 잘 납득될 수 있다.

2:0.2 (33.2) 하느님의 본성은 최극 관념들의 계시 속에서
공부가 될 수 있고, 신성한 성격은 천상의 이상들에 대한

하나의 묘사로서 상상될 수 있지만, 신성한 본성의 모든 계시들 중 가장 잘 깨우쳐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교화시키는 것은, 자신의 신성의 충만한 인식을 달성하기 이전과 이후의, 나사렛 예수의 종교적 삶에 대한 이해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만일 미가엘의 육신화 된 삶이, 사람에게 주는 하느님의 계시의 배경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의 본성과 성격에 대한 인간 개념에서의 더욱 멀리 비치는 조명과 통일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신성한 본성에 관련되고 있는, 어떤 관념과 이상들을 인간의 언어 상징 안에 집어넣으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3 (33.3)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개념을 확대시키고 영성화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에 있어서, 우리는 필사 마음의 제한된 수용능력 때문에 엄청나게 장애를 받는다. 또한 우리는 신성한 가치를 묘사하려는 그리고 유한자, 곧 사람의 필사 마음에게 영적 의미들을 제시하려는 우리의 노력에서, 조명이나 혹은 비교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재료의 빈곤 때문에 그리고 언어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임무 수행은 심각하게 장애를 받고 있다. 필사 마음 속에 증여되어있는 우주 아버지의 조절자가 내주하고, 창조자

아들의 진리 영이 가득 퍼져있다는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면, 하느님에 대한 인간 개념을 확대시키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거의 쓸모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가슴속에서 하느님에 대한 개념의 확대를 도와주는 이들 신성한 영(靈)의 현존에 의존하면서, 나는 사람의 마음에게 하느님의 본성에 대한 더욱 자세한 묘사를 시도하라는 나의 맡겨진 명령의 집행을 즐겁게 시작한다.

제 1 장. 하느님의 무한성

2:1.1 (33.4) “무한자와 접하지만, 우리는 그를 찾아낼 수 없다. 신성한 발자취는 알려지지 않는다.” “그의 납득은 무한하고 그의 위대함은 탐색할 수 없다.” 아버지 현존에서의 눈을 멀게하는 빛은, 그의 낮은 창조체들에게는 그가 마치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생각들과 계획들을 탐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행한다.” “하느님은 위대하시다; 것처럼 우리는 그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의 나이가 얼마인지 탐색해낼 수도 없다.” “하느님이 정말로 땅 위에 거하겠는가? 보라, 하늘(우주)과 하늘들의 하늘(우주들의 우주)도 그를 담을 수 없다.” “그의

판단을 어찌 탐색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의 지나간 길들을 어찌 찾아낼 수 있겠는가!”

2:1.2 (34.1) “오직 한 분의 하느님만 계시다. 무한한 아버지, 그는 또한 신실한 창조자이시다.” “신성한 창조자는 또한 우주 결정자, 혼들의 근원이자 운명이다. 그는 최극 혼, 시원 마음이며 모든 창조의 무제한적 영이다.” “위대한 통제자는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그는 장엄과 영광으로 찬란하다.” “창조자 하느님에게는 두려움과 미움이 전혀 없다. 그는 불멸하고, 영원하고 자아-실존하며 신성하고 풍성하다.” “만물의 하늘 선조(先祖)는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심오하고 불가해한 분인가!” “무한자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줌에서 가장 탁월하시다. 그는 시작이요 끝이며, 모든 선함과 완전한 목적의 아버지이시다.” “하느님과 함께 모든 것이 가능하며; 영원한 창조자는 원인들 중의 원인이다.”

2:1.3 (34.2) 아버지의 영원한 우주 개인성의 엄청난 현시활동의 무한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무한과 영원 둘 모두에 대해 분별불가적으로 자아-의식 하며; 마찬가지로 그는 완전성과 힘을 충분히 아신다. 그는 우주에서 자신의

신성한 조화-협동자들을 제외하고, 자신에 대한 완전하고
엄밀하고 완벽한 평가를 체험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2:1.4 (34.3) 아버지는 그의 주(主)우주 의 다양한 구역들에서
때때로 변함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각기 다른 요구의 필요를
끊임없이 그리고 반드시 충족시킨다. 위대한 하느님은
자신을 알고 납득하며; 그는 완전성의 모든 그의 시원의
속성들을 무한히 자아-의식 한다. 하느님은 조화우주의
우연한 현상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그는 우주의 실험가도
아니다. 우주 주권자들은 모험에 들어갈 수 있고; 별자리
아버지들은 실험할 수 있고; 체계 우두머리들은 실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주 아버지는 시작에서 끝을 알며, 그의
신성한 계획과 영원한 목적은 그의 광대한 권역의 모든
우주의 각 세계, 체계 그리고 별자리 안에 있는 그의 모든
종속들의 모든 실험들과 모든 모험들을 실재적으로
포용하고 이해한다.

2:1.5 (34.4) 하느님에게 새로운 사물이란 아무 것도 없으며, 그
어떤 조화우주적 사건도 전혀 놀라운 것이 될 수 없다; 그는
영원의 순환에 거주하신다. 그는 시작이나 끝나는 날이
없이 늘 계신다. 하느님에게는 그 어떤 과거, 현재,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시간이 어떤 주어진 순간에든지
현재이다. 그는 위대하며 유일한 스스로 이신 이이다.

2:1.6 (34.5) 우주 아버지는 그의 모든 속성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그리고 분별된-자격이 없이 무한하다; 바로 이
사실이, 저절로 그리고 그 자체로, 유한한 물질적 존재들
그리고 다른 하급 피조 지능존재들과의 모든 직접적인
개인적 교통으로부터 그를 자동적으로 차단한다.

2:1.7 (34.6)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의 갖가지 창조체들과의
접촉과 교통을 위한, 운명지어진 그러한 주선을 필요로
한다; 첫 번째로, 신성에 있어서 완전함에도, 또한
행성종족들의 바로 그 삶과 피를 가진 자연본성으로
때때로 함께 하는,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개인성으로 너희들 중의 하나가 되고 너희와 하나가 되어;
그리하여, 말하자면,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리기도 하고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한 미가엘의 증여에서
발생하였듯이, 하느님은 사람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급 기원의 물질적 존재들에게 접근하고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또한 그들에게 봉사하는 무한한
영의 개인성들, 세라핌천사군 들의 다양한 계층 그리고

기타 천상 지능존재들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란시아의 인간들에게 그러한 것처럼, 예고 없이 그리고 설명 없이 보내지는, 내주하도록 보내지는 위대한 하느님 자신의 실재 선물인 미(未)개인적 신비 감시자들, 생각 조절자들이 존재한다. 끝없는 풍부함 안에서, 그들은 하느님-의식이나 또는 잠재적인 그러한 것의 수용능력을 소유하는 그러한 필사자들의 미천한 마음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내주하기 위하여 영광의 높은 곳으로부터 내려온다.

2:1.8 (35.1) 이러한 방법들 그리고 다른 여러 방법들로,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고 유한(有限) 이해력을 철저히 초월하는 방법들로,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리고 기꺼이 내려오시며, 그리고 다른 한편 그의 창조체 자녀들의 유한 마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의 무한성을 변형시키고 희석시키며 약화시킨다. 그리하여, 절대성을 점차 감소시키는 일련의 개인성 분배들을 통하여, 무한한 아버지는 그의 멀리 퍼진 우주의 많은 영역에 속한 다양한 지능존재들과의 가까운 접촉을 즐길 수 있게 된다.

2:1.9 (35.2) 그의 무한성, 영원성, 그리고 시원성의 사실 그리고 실체로부터 조금도 낮아짐이 없이, 그는 이 모든 것을 행해왔고 지금도 행하며, 또한 행함을 영원토록 계속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신비,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그러한 창조체들에게 그들의 존재가 충분히 납득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진실이다.

2:1.10 (35.3) 최초 아버지가 그의 계획에서 무한하고 그의 목적에서 영원하기 때문에, 이들 신성한 계획과 목적을 전부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어떤 유한 존재에게든지 선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필사 사람은 아버지의 목적들을 우주가 진보하는 연속 차원들의 완성되어지는 창조체 상승계획 수행과 이에 따라서 그들이 드러나는데 따라서, 오직 이따금, 여기저기에서, 얼핏 볼 수 있을 뿐이다. 사람은 무한성의 의의(意義)에 에워싸여 있을 수는 없지만, 무한하신 아버지는 모든 우주 안에 있는 자신의 모든 자녀의 모든 유한을 가장 분명하고 충만하게 이해하고 사랑스럽게 포용하신다.

2:1.11 (35.4) 아버지는 수많은 상급 파라다이스 존재들과 신성과 영원을 공유하지만, 우리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그의 조화-협동 연관-동료들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와 무한성과 필연인 우주 시원성을 총만히 나누는지는 의문을 갖는다. 개인성의 무한성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개인성의 모든 유한성을 포용하며; 따라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우리의 존재를 갖는다.”라고 선언하는 가르침은 진리—글자 그대로 진리—이다. 필사 사람 속에 내주하는 우주 아버지의 순수한 신(神)의 그 단편은 첫째 위대한 근원이며 중심, 아버지들의 아버지의 무한성의 일부분이다.

제 2 장. 아버지의 영원한 완전성

2:2.1 (35.5) 너희 옛 선지자들도 우주 아버지의 영원한, 시작도-없고, 끝도-없는 순환적인 본성을 이해하였다. 하느님은 자신의 우주들의 우주 안에 글자 그대로 그리고 영원히 계신다. 그는 모든 그의 절대 장엄과 영원한 위대함을 가지고 현재 순간에 거하신다. “아버지는 자신 안에 생명을 갖고 계시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시대에 두루 “모든 생명을 주신” 분은 아버지였다. 신성한 고결한-순수성 안에 무한한 완전성이 있다. “나는 주님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우주들의 우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그가 빛들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행성 사이의 관련사들에 관한 그의 행위에는 “아무런 변동 가능성도 없고 변화의 그림자조차 없음”을 드러낸다. 그는 “시작에서 끝을 선언한다.” 그는 말씀 하신다: “나의 조언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나의 아들 안에서 세운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나는 내가 기뻐하는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계획과 목적은 그 자신처럼 : 영원하고 완전하며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다.

2:2.2 (35.6) 아버지의 명령에는 완벽의 최종과 충만의 완전성이 있다. “하느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언제까지나 늘 그럴 것이다; 어떤 것도 거기에 더해질 수 없고 어떤 것도 거기에서 감해질 수 없다.” 우주 아버지는 지혜와 완전성에 대한 그의 기원적 목적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의 조언들은 확고하고 그의 의도는 변경되지 않으며, 동시에 그의 행위들은 신성하고 오류가 없다. “그에게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시간과 같다.” 신성의 완전성과 영원의 장엄함은 필사 사람의 제한된 마음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언제까지나 초월한다.

2:2.3 (36.1) 변함없는 하느님의 반응은, 그의 영원한 목적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의 피조 지능존재들의 변화하는 태도와 바뀌는 마음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외관상 그리고 피상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그러나 표면의 아래 그리고 밖을 향한 모든 현시활동의 밑에는, 영원한 하느님의 변함없는 목적, 영속하는 계획이 여전히 있다.

2:2.4 (36.2) 바깥 우주들에서는, 완전성은 부득이 상대적인 용어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중앙우주 그리고 특별히 파라다이스에서는, 완전성은 희석되지 않는다; 어떤 위상들에서는 절대이기도 하다. 삼위일체 현시활동은 신성한 완전성을 다양하게 보여주지만, 그것을 얹게 하지는 않는다.

2:2.5 (36.3) 하느님의 시원적 완전성은 어떤 가정되는 정의(正義)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의 신성한 본성인 선천적 선(善)의 완전성에 들어 있다. 그는 최종적이고 완벽하고 완전하다. 그의 의로운 성격의 아름다움과 완전성에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그리고 공간의 세계들에서 살아있는 실존들의 전체 기획이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완전성을 공유하는 체험인 높은 운명을 향해 모든 의지 창조체들을 들어 올리는 신성한 목적에 집중되어있다. 하느님은 자아-중심적이지도 않고 자아-억제적이지도 않다; 그는 광대한 우주들의 우주의 모든 자아-의식적 창조체들에게 자신을 증여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는다.

2:2.6 (36.4) 하느님은 영원히 그리고 무한하게 완전하며, 그는 자기 자신의 체험으로는 불완전성을 몸소 알 수 없지만, 모든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들의 진화 우주들에 속한 모든 투쟁하는 창조체들의 불완전함의 모든 체험에 대한 의식을 공유한다. 완전성의 하느님의 개인적이고 해방시키는 손길은 도덕적 식별의 우주 차원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저들 필사창조체들의 본성을 둘러싸고 그 가슴을 감싸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고는 신성한 현존의 접촉을 통하여, 우주 아버지는 전체 우주의 모든 도덕적 존재의 진화 생애 속에서 미성숙과 불완전성과 함께하는 체험에 실재로 참여한다.

2:2.7 (36.5) 인간의 한계들, 잠재적 악은 신성한 본성의 일부분이 아니다. 그러나 악과 함께하는 필사 체험과 거기에서의 모든 사람의 관계들은 시간의

자녀들—파라다이스로부터 나오는 모든 창조자 아들에 의해 창조되어왔거나 진화되어온 도덕적 책임을 가진 창조체들—안에서의 하느님의 항상-확대하는 자아-실현의 일부분인 것이 아주 확실하다.

제 3 장. 공의(公義)와 정의(正義)

2:3.1 (36.6) 하느님은 정의로우시며; 따라서 그는 공정하다. “주님은 그의 모든 방법에 있어서 정의롭다.” “내가 행한 모든 것 중에 원인 없이 한 것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한다.”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전적으로 정의롭다.” 우주 아버지의 공의(公義)는 그의 창조체들의 활동과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없는데, “이는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에게는 어떤 사악한 불의도 없고, 사람들을 차별하지도 않고, 어떤 선물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3.2 (36.7) 그러한 하느님께, 그의 변치 않는 천의(天意)를 바꾸라고, 그래서 그의 현명한 자연 법칙들과 의로운 영적 명령의 작용으로 인한 마땅한 귀결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철없이 간청하는 것은 얼마나 헛된 일인가! “속지 말라; 하느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시는데,

이는 사람이 뿌린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그릇된 행위의 결과를 거두는 공의(公義)에 있어서도, 이 신성한 공의는 항상 자비로 완화된단다. 무한한 지혜는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든지 내려질 공의와 자비의 비율을 결정하는 영원한 중재자이다. 그릇된 행위와 하느님 정부에 대항하는 고의적 반역에 대한 가장 큰 형벌(실제로는 불가피한 결과)은 그 정부의 한 개별적 주체로서의 실존을 잃는 것이다. 전심에서 나온 죄의 최종적 결과는 절멸(絶滅)이다.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한 죄-정체성 확인된 개별존재들은 사악한 불의를 포용함으로 전적으로 비(非)실체가 되어 스스로를 파괴해 왔다. 그렇지만 그러한 창조체의 사실적 사라짐은 우주가 충분히 준수되어 있는 것 안에서 운명 지어진 공의의 질서가 현재할 때 까지 항상 연기된다.

2:3.3 (37.1) 실존의 중지는 대개 영역 또는 영역들의 섭리시대나 신시대적 판결이 있을 때 공표된다. 유란시아와 같은 세계에서는 그것은 행성의 섭리시대의 끝에 온다. 실존의 중지는 행성협의회로부터 창조자 아들의 법정을 거쳐 옛적으로 늘 계신이들의 심판법정에

이르는 모든 사법권을 갖는 법정들의 조화-협동 활동에 의하여, 그러한 시기에 공포될 수 있다. 괴멸의 명령은 그릇된 일을 행한 자가 거주하는 구체에서 비롯된 고발에 대한 파기될 수 없는 확인 이후에 초우주의 상급 법원에서 비롯한다; 그 다음에는, 소멸 판결이 높은 곳에서 확인되고 나면, 집행은 초우주의 본부에 거주하는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일하는 판사들의 직접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2:3.4 (37.2) 이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죄-정체성 확인된 존재는 즉시 그가 존재해 오지 않았던 것처럼 된다. 그러한 숙명으로부터는 부활이 전혀 없으며; 그것은 영속하며 그리고 영원하다. 정체성의 살아 있는 에너지 요소들은, 시간의 변형들과 공간의 형태변형들에 의해, 그것들이 언젠가 창발하였던 조화우주의 잠재들 속으로 분해된다. 사악하고 불의한 자의 개인성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보증할 수도 있는 선택과 최종 결정에 창조체가 실패함으로써, 지속적인 생명 매체를 빼앗긴 것이다. 연관된 마음에 의한 계속되는 죄 포용은 사악한 불의와의 완벽한 자아-정체성확인구현 안에서 극도에 이르고, 그 다음에는 생명이 중지됨에 따라, 조화우주로

분해됨에 따라, 그렇게 고립된 개인성은 창조의 대혼(大魂) 속으로 흡수되어, 최극존재의 진화하는 체험의 일부분이 된다. 그것은 결코 다시 개인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의 정체는 그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된다. 조절자-내주 개인성의 경우에는, 지속되는 조절자의 실체 속에서 체험적 영 가치들은 생존한다.

2:3.5 (37.3) 실체의 현재 차원들 사이의 어떤 우주 경쟁에서든지, 상급 차원의 개인성이 하급 차원의 개인성을 궁극적으로 이기게 된다. 우주 논쟁의 이 필연적 결말은 본질특성으로서의 신성이 어떤 의지 창조체이든지 실체성 또는 실재성의 정도와 동등하다는 사실에서 선천적이다. 순전한 악, 완벽한 잘못, 고의적 죄, 그리고 수그러지지 않은 사악한 불의는 선천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자멸이다. 조화우주의 비실체인 그러한 태도들은 정의로운 판결의 우주 법정들이 공의(公義)-결정의 명령을 보류하는 과도기 자비-관용과 그리고 공정성을-찾아내는 기능구조들 때문에 오직 우주 안에서 생존할 수 있다.

2:3.6 (37.4) 지역우주들에서의 창조자 아들의 통치는 창조와 영성화의 하나이다. 이들 아들들은 진보하는 필사자 상승이라는 파라다이스 계획의 효력적인 집행에, 반역자들과 그릇된 생각을 한 자들을 복귀시키는 일에 자신들을 헌신하지만, 그러한 모든 사랑 넘치는 수고들이 마침내 그리고 언제까지나 거부되면 최종 괴멸 명령이 옛적으로 늘 계신이들의 관할권 밑에서 움직이는 기세들에 의해 집행된다.

제 4 장. 신성한 자비

2:4.1 (38.1) 자비는 단순히, 지식의 완전성과 유한 창조체들의 자연적 연약성과 환경의 장애를 충분히 인식하는데서 나오는 그 지혜에 의해 완화된 공의일 뿐이다. "우리 하느님은 연민이 가득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참으시며, 자비가 풍부하시다." 그러므로 "주님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는 그가 충분하리만큼 용서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자비는 영속에서 영속으로 이어지며"; 정말로, "그의 자비는 언제까지나 지속된다." "나는 이 세상에서 자애로움, 심판 그리고 정의(正義)를 베푸는 주님이며, 이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 내가 기뻐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의 자녀를 고의적으로 괴롭히지도

않고 슬프게 하지도 않는데, “이는 내가”자비의 아버지이고 모든 위로의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2:4.2 (38.2) 하느님은 선천적으로 친절하고, 본성적으로 연민이 가득하시며, 영속적으로 자비로우시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의 사랑 넘치는-친절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영향도 결코 필요하지 않다. 창조체의 필요만으로도 아버지의 온화한 자비와 그의 구원하는 은혜의 총만한 흐름을 보장하기에 온통 충분하다. 하느님은 그의 자녀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그에게는 쉬운 일이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더 잘 납득할수록, 그를 용서하는 것, 나아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더욱 쉬워진다.

2:4.3 (38.3) 오직 무한한 지혜의 식별력만이 정의로운 하느님으로 하여금 그리고 동시에 어떤 주어진 우주 상황 안에서도 공의와 자비를 베풀 수 있게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의 우주 자녀들을 향해 갈등하는 태도로 결코 괴로워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결코 태도적인 적대주의의 희생자가 아니다. 하느님의 모든 것-알고계심은 그의 영원한 본성의 그의 모든 신성한 속성과 무한 본질특성의

요구들을 완전하게, 동시에, 그리고 균등하게 만족시키는
그 우주 행위성의 선택에 그의 자유의지를 틀림없이
지도한다.

2:4.4 (38.4) 자비는 선(善)과 사랑의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산물이다. 사랑 넘치는 하느님의 선(善)한 본성은 그의
우주 자녀들의 모든 집단의 각 구성원에게 자비의 현명한
사명활동을 억제할 수 없도록 만든다. 영원한 공의와
신성한 자비는 인간 체험 속에서 소위 공정함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을 함께 구성한다.

2:4.5 (38.5) 신성한 자비는 완전성과 불완전성의 우주 차원들
사이를 조절하는 하나의 공정(公正) 기법을 나타낸다.
자비는 진화하는 유한자의 상황들에 맞추어진 최극위의
공의, 시간의 자녀들의 가장 높은 이익과 우주 복지를 만족
시키려고 수정된 영원의 정의(正義)이다. 자비는
공의(公義)에 대한 위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진화하는
우주들의 물질창조체에게 그리고 종속적인 영적
존재들에게 그것이 공정하게 적용 되듯이, 최극 공의의
요구를 납득하는 해석이다. 자비는, 그것이 신성한 지혜에
의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우주 아버지와 그의 모든 연관

창조자들의 모든 것-아는 마음과 주권을 가진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창조계에 있는 갖가지 지능존재들에게 현명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내려지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공의(公義)이다.

제 5 장. 하느님의 사랑

2:5.1 (38.6)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우주의 관련사들에 대한 유일한 그의 개인적 태도는 항상 신성한 애정 반응이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증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그는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태양을 뜨게 하시며 온당한 자와 부당한 자들에게 비를 내리게 하신다.”

2:5.2 (39.1) 자기 아들들의 희생이나 또는 그의 피조 종속들의 탄원 때문에 설득되어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이라고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것인데, “왜냐하면 아버지 자신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어버이로서의 애정에 대한 응답으로 하느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주하도록 놀라운 조절자들을 보낸다. 하느님의 사랑은 보편적이다; “누구든지 올 수 있다.” 그는 “진리의 지식을

얻어 모든 사람들이 구원되게 하신다.” 그는 “누구도 멸망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2:5.3 (39.2) 창조자들은 사람들이 신성한 법칙들을 어리석게 위반함으로써 생기는 비참한 결과로부터 구하려는 시도를 가장 먼저 하시는 이들이다. 하느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아버지로서의 애정이다; 따라서 그는 때로 “우리가 그의 거룩함을 함께 하는 자가 되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역경에 있게 한다.” 너희가 불같은 시련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서 그가 우리와 함께 고통 받고 있음”을 기억하라.

2:5.4 (39.3) 하느님은 죄인들에게 신성하게 다정하시다. 반역자들이 정의로움으로 돌아올 때 , 그들은 자비롭게 받아들여지며, “이는 우리 하느님은 풍성하게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너희 죄악들을 지워버리는 자이며, 나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어떤 사랑의 태도를 우리에게 증여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보라.”

2:5.5 (39.4)

결국, 하느님의 선함에 대한 가장 큰 증거와 그를 사랑해야 되는 최극 이유는 아버지의 내주하는 선물—너희 두 존재가 영원히 하나가 될 그때를 그토록 인내하며 기다리는 조절자—이다. 비록 너희가 하느님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만일 너희가 내주하는 영의 인도를 따르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생애 한 생애, 우주에 우주를 거쳐서 그리고 한 시대 한 시대, 너희가 우주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개인성의 현존 앞에 마침내 서게 될 때까지, 틀림없이 인도될 것이다.

2:5.6 (39.5)

인간 본성의 한계와 너희 물질적 창조체의 장애들이 너희가 그를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느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 너희와 하느님 사이에는 건너야 되는 엄청난 거리(물리적 공간)가 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다리를 놓아야만 하는 영적 차이의 거대한 심연(深淵)이 존재한다; 그러나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개인적 현존으로부터 너희를 물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분리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너희 안에 살고 계시다는 엄숙한 사실을 멈추어 숙고해 보라;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이미 그 심연에 다리를 놓았다. 그는

너희가 너희의 영원한 우주 생애를 추구할 때 너희 안에 살면서 너희와 함께 수고하기 위하여 그 자신, 그의 영을 보내 왔다.

2:5.7 (39.6) 나는 그토록 위대하고 동시에 그의 하급 창조체들을 들어 올리는 사명활동에 그토록 애정을 담아 헌신하는 그분을 경배하는 일이 쉽고도 기쁜 일임을 발견한다. 나는 창조에서 그리고 그것들의 통제에서 그토록 능력이 있는데도, 선함에 그토록 완전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드리우는 사랑함-친절함에 그토록 신실하신 분을 당연히 사랑한다. 나는 그가 그토록 위대하고 능력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가 그렇게 선하고 자비롭다면, 똑같이 하느님을 사랑하리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놀라운 속성들을 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본성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

2:5.8 (39.7) 공간 우주들의 진화에 선천적으로 있는 시간의 갖가지 어려움들과 그토록 용맹스럽게 투쟁하는 창조자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종속 행정-관리자들을 내가 바라볼 때, 나는 내가 우주들의 비교적 작은, 이들 통치자에게 크고 심오한 애정을 갖고 있음을 깨닫는다. 결국 나는, 영역들의

필사자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우주 아버지와 신성하거나 인간인 다른 모든 존재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 개인성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식별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체험은 사랑을 받는 체험에 대한 매우 직접적인 응답이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의 최극위, 궁극위 그리고 절대라는 모든 속성들이 그로부터 없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를 최극으로 사랑할 것이다.

2:5.9 (40.1) 아버지의 사랑은 현재와 그리고 영원한 시대의 끝없는 순환에 두루, 우리를 따라온다. 너희가 하느님의 사랑 넘치는 본성을 숙고할 때,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타당하고도 자연스러운 개인성 반응이 있다: 너희는 너희 조물주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되겠고; 자녀들이 이 세상의 부모에게 주는 것과 비슷한 애정을 너희가 하느님께 그렇게 드리게 되는데; 이는 아버지, 실제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주 아버지는 그의 피조 아들들과 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복지를 언제까지나 추구하기 때문이다.

2:5.10 (40.2)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은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부모의 애정이다. 신성한 사랑은, 신성한 지혜와 우주 아버지의 완전 본성의 다른 모든 무한 특징들과 합일된 관계적-연합 속에서 기능한다. 하느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하느님은 아니다. 필사 존재들에 대한 신성한 사랑의 가장 큰 현시활동은 생각 조절자들의 증여 안에서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 사랑에 대한 가장 큰 계시는 이 땅에서 이상적인 영적 삶을 살았던 그의 미가엘 아들의 증여 삶 속에서 보인다. 각각의 인간 혼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개별존재화하는 이는 바로 내주하는 조절자이다.

2:5.11 (40.3) 사랑이라는 인간의 언어 상징을 사용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의 우주 자녀들에 대한 신성한 애정을 묘사하라고 강요된 것이 가끔 나는 상당히 고통스럽다. 이 단어는, 그것이 비록 존중과 헌신이라는 필사 관계들에 대한 사람의 최고 개념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은 인간관계를 너무 자주 나타내기 때문에, 살아 계시는 하느님의 우주 창조체들을 향한 그의 비길 데 없는 애정을 나타내는데, 또한 사용되는 어떤 언어로 알려지기에는 온통 저급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신성한 애정의 참된 본성과 절묘하게 아름다운
의의(意義)를 사람 마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몇 가지
숭고한 그리고 전용적인 단어를 내가 사용할 수 없음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2:5.12 (40.4) 사람이 어떤 개인적 하느님의 사랑을 보지 못할 때,
하느님의 왕국은 단지 선(善)한 왕국이 되고 만다. 신성한
본성의 무한한 합일성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하느님이
그의 창조체들과 가지는 모든 개인적 거래에서 지배적인
특징이다.

제 6 장. 하느님의 선택

2:6.1 (40.5) 물리적 우주에서 우리는 신성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지적 세계에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식별할 수
있지만, 하느님의 선택은 오직 개인적 종교 체험의 영적
세계에서만 발견된다. 그것의 참된 본질에 있어서, 종교는
하느님의 선택에 대한 신앙-신뢰이다. 철학적으로 볼 때,
하느님은 위대하고 절대적이며 심지어는 지능적이고
개인적 일 수 있지만, 종교적으로 볼 때 하느님은 또한
도덕적임에 틀림없다; 그는 선하심에 틀림없다. 사람은
위대한 하느님은 두려워했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오직

선하신 하느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한다. 하느님의 이 선함은 하느님의 개인성의 일부분이며, 그것에 대한 그 충만한 계시는 오직 하느님의 믿는 아들들의 개인적 종교 체험에서만 나타난다.

2:6.2 (40.6) 종교는 영 본성의 초(超)세계가 인간 세계의 근본적 필요를 인식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화종교는 윤리적으로 될 수 있지만, 오직 계시 종교만이 참되게 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이 된다. 하느님이 임금으로서의 도덕으로 지배하는 신(神)이라는 옛 개념은 예수에 의해 부모-자녀 관계의 친밀한 가족으로서의 도덕인, 자애로운 손길이 미치는 차원으로 향상되었는데, 필사자의 체험에서 이것보다 더 온화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

2:6.3 (41.1) “하느님의 선함의 풍부함이 잘못을 범한 사람을 뉘우침으로 인도한다. ” “모든 선한 재능과 모든 완전한 재능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하느님은 선하시며; 그는 사람들의 혼이 쉴 영원한 피난처이다.” “주님 하느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다. 그는 오래-참으시고 선(善)과 진리가 풍부하시다.” “주님의 선함을 맛보고

알라! 그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은 인자하시고 연민이 가득하시다. 그는 구원의 하느님이시다.” “그는 절망에 빠진 자를 고치시고 혼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는 사람의 만능이신 은인이시다.”

2:6.4 (41.2) 왕-심판관으로서의 하느님에 대한 개념은, 그것이 비록 높은 도덕기준을 육성하고 그리고 법을-존중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었지만, 개별 신자를 시간과 영원 안에서의 그의 지위에 있어서 불안이라는 슬픈 처지에 내버려 두었다. 후기의 히브리 선지자들은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임을 선언하였다; 예수는 하느님을 각 인간 존재의 아버지로 드러냈다. 예수의 일생은 하느님에 대한 필사자 개념 전체를 초월하여 조명하고 있다. 자아없음은 부모의 사랑 속에 선천적으로 있다. 하느님은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사랑하신다. 그는 모든 우주 개인성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시다.

2:6.5 (41.3) 정의(正義)는 하느님이 우주의 도덕 법칙의 근원임을 의미한다. 진리는 하느님을 계시자로, 가르치는 자로 보여준다. 그러나 사랑은 애정을 주고 갈망하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재하는 것과 같이, 납득하는 동료관계를 추구한다. 정의(正義)는 신성한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사랑은 아버지의 태도이다. 하느님의 정의(正義)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아없는 사랑과 모순된다는 잘못된 추측은, 신(神)의 본성에 합일성이 없을 것이라고 가정했고 그리고는 하느님의 합일성과 자유-의지성 둘 모두에 대한 철학적 공격인, 보상 교리라는 고심작으로 직접 가도록 이끌었다.

2:6.6 (41.4) 그의 영이 땅에 있는 그의 자녀들 속에 거주하는, 하늘에 계신 자애로운 아버지는, 분리된 개인성—공의의 개인성 그리고 자비의 개인성—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의 은혜 또는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중재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신성한 정의(正義)는 엄격한 인과응보의 공의(公義)로 지배되지 않는다; 아버지로서의 하느님은 심판관으로서의 하느님을 초월한다.

2:6.7 (41.5) 하느님은 결코 분노하거나 복수하시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지혜가 종종 그의 사랑을 억제하며 한편, 공의(公義)가 그의 거부된 자비의 조건을 정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의 정의(正義)의 사랑이 죄를 동등하게 미워하는 것으로 전시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아버지는 일관성 없는 개인성이 아니며; 신성한 합일성은 완전하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는, 하느님과 조화-협동자들의 영원한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합일성이 있다.

2:6.8 (41.6) 하느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신다: 그러한 말은 철학적으로는 참말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초월적 개인성이며, 개인만이 다른 개인들을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다. 죄는 하나의 개인이 아니다. 하느님은 죄인이 개인성 실체(잠재적으로 영원한)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반면, 죄에 대해서는 하느님이 어떤 개인적 태도도 취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죄는 영적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개인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오직 하느님의 공의는 단지 그것의 실존에 대해 인식할 뿐이다. 하느님의 사랑이 죄인을 구원한다; 하느님의 법이 죄를 파괴한다. 필사 마음이 내주하는 영 조절자와 스스로를 충분히 정체성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것과 똑같이, 만일 죄인이 자기 자신을 온통 죄로 최종적으로 정체성을 확인하면, 신성한 본성의 이 태도는 분명히 바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죄-정체성 확인된 필사자는

본성에서 온통 비(非)영적인 상태가 되며 (따라서 개인성으로 비(非)실제적이며) 결국에는, 존재의 소멸을 체험하게 된다. 비(非)실체는, 심지어는 창조체 본성의 미완성조차도, 점진적으로 실체가 되고 점점 더 영적으로 되는 우주 안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다.

2:6.9 (42.1) 개인성의 세계와 대면할 때, 하느님은 사랑 넘치는 개인임이 발견된다; 영적 세계와 대면할 때에는, 그는 개인적 사랑이다; 종교적 체험에 있어서는 그는 둘 모두에 해당한다. 사랑은 하느님의 자발적 의지를 정체화한다. 하느님의 선함은 신성한 자유의 지성—사랑하고, 자비를 보이고, 인내를 현시하고, 용서를 베푸는 보편적 성향—의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다.

제 7 장. 신성한 진리와 아름다움

2:7.1 (42.2) 모든 유한(有限) 지식과 창조체 납득은 상대적이다. 정보와 지능은, 비록 높은 근원들에서 단편적으로 수집되었더라도, 오직 상대적으로 완벽하고 부분적으로 정확하며 개인적으로 참될 뿐이다.

2:7.2 (42.3) 물리적 사실들은 상당히 일정하지만, 진리는 우주의 철학에 있어서 살아있고 유연한 요소이다.

진화하는 개인성들은 그들의 교통에서 부분적으로 현명하고 상대적으로 참될 뿐이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개인적 체험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만 확신할 수 있다. 한 장소에서 겉으로 보기에 온통 참된 것으로 보이는 그것이 다른 창조 구역에서는 오직 상대적으로 참된 것일 수 있다.

2:7.3 (42.4) 신성한 진리, 최종 진리는 한결같고 보편적이지만, 영적인 것들에 관한 이야기는, 다양한 구체에서 흩어져 나온 수많은 개별존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지식의 완벽성에서의 이 상대성 때문에 세부사항에서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체험의 길이와 정도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 체험의 충만함에서 다를 수 있다. 첫째 위대한 근원이며 중심의 법칙과 뜻, 생각과 태도가 영원히, 무한히 그리고 보편적으로 참된 반면; 동시에, 각 우주, 체계, 세계와 창조된 지능존재에 대하여 이것들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들을 조절하는 것은, 무한한 영과 다른 모든 연관된 천상의 개인성들의 지역적 계획과 과정에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창조자 아들들이 그들 각자의 우주에서 기능하는 대로 그들의 계획과 기법에 일치한다.

2:7.4 (42.5) 물질주의의 잘못된 과학은 필사 사람을 우주 속에 버림을 받은 것으로 판결할 것이다. 그러한 부분적인 지식은 잠재적으로 악이다; 그것은 선과 악 둘로 이루어진 지식이다. 진리는 충만하면서도 균형이 잡혀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사람이 진리를 찾을 때, 그는 신성한 실재를 추구한다.

2:7.5 (42.6) 철학자들은 추상적 관념의 오류, 곧 실체의 한 측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실천 관행으로 잘못 인도될 때, 가장 중대한 잘못을 범한다, 그리고는 그러한 고립된 양상이 진리 전체가 되는 것으로 장담한다. 현명한 철학자는 항상 모든 우주 현상 뒤에 있는 그리고 그것보다 선재(先在)하는 창조적 설계를 찾으려 할 것이다. 창조자의 생각은 항상 창조적 행동보다 앞선다.

2:7.6 (42.7) 지적 자아-의식은, 진리의 아름다움, 그것의 영적 본질특성을, 그 개념에 대한 철학적 일관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나-계시는 진리의 영의 어김없는 반응으로 말미암아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 행복은 진리를 인식함으로부터 생기는데, 이는 진리가 활동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망과 슬픔은 실수 위에서 일어나는 데 그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체험 속에서 실현되어질 수 없다. 신성한 진리는 그 영적 향기에 의해 가장 잘 알려진다.

2:7.7 (42.8) 영원한 탐구는 통일을 위한, 신성한 결합을 위한 것이다. 멀리-퍼지는 물리적 우주는 파라다이스 섬에서 결합하며; 지적 우주는 마음의 하느님, 공동 행위자 안에서 결합하며; 영적 우주는 영원한 아들의 개인성 안에서 결합한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에 속한 고립된 필사자는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와 우주 아버지 사이의 직접적 관계를 통하여 아버지 하느님 안에서 결합한다. 사람의 조절자는 하느님의 단편이고 신성한 통일을 영속적으로 추구하며; 그것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파라다이스 신(神)과 함께 그리고 그 안에서 결합한다.

2:7.8 (43.1) 최극 아름다움을 식별함은 실체의 발견과 그리고 집대성활동이다: 영원한 진리 안에 있는 신성한 선(善)을 식별함, 그것은 궁극의 아름다움이다. 인간 예술의 매력조차도 그 합일성의 조화 속에 있다.

2:7.9 (43.2) 히브리 종교의 큰 오류는 과학의 사실적 진리들과 예술의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하느님의 선함과 연관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문명이 진보됨에 따라, 그리고 종교가 진리를 상대적으로 배제하고 아름다움을 무시하도록 하느님의 선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어리석은 길을 일관되게 추구한 이래로,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고립된 선(善)에 대한 추상적이고 분열된 관념으로부터 돌아서려는 경향이 점점 더 생겨났다. 많은 20-세기의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을 붙잡는데 실패한, 현대 종교의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고립적인 도덕성은, 만일 그 도덕적 명령에 추가하여 과학과 철학과 영적 체험의 진리들을, 물질 창조의 아름다움, 지적 예술의 매력, 그리고 진정한 성격 성취라는 웅장함과 똑같이 배려한다면, 그 스스로 회복될 것이다.

2:7.10 (43.3) 이 시대의 종교적 도전은, 조화우주적 진리와 우주적 아름다움, 그리고 신성한 선(善)의 확대되고 절묘하게 집대성된 현대적 개념들에서 나오는, 새롭고도 매력적인 살아있는 삶의 철학을 과감하게 구축하게 될, 그러한 영적 통찰력을 가진 선견지명이 있고 진취적으로-내다보는 남녀들을 향한 것이다. 그러한 도덕의 새롭고도

정의로운 시각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인간의 혼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그것에 도전하는 것이다. 진리(眞)와 아름다움(美)과 선(善)함은 신성한 실체들이며, 사람이 영적 삶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영원자의 이 최종 본질특성들은 사랑이신 하느님 안에서 점점 더 조화-협동되고 통합될 것이다.

2:7.11 (43.4) 모든—물질적, 철학적, 또는 영적—진리는 아름다운 동시에 선하다. 모든—물질적 예술 또는 영적 대칭—실제적 아름다움은 참된 동시에 선하다. 모든—개인적 도덕성, 사회적 공평성, 또는 신성한 사명활동, 그 어떤 것이든지—진정한 선(善)은 똑같이 참되고 아름답다. 건강, 건전함 그리고 행복은, 인간 체험 안에서 혼합되는 것으로서의 그러한,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善)의 집대성활동이다. 효과를 이루는 삶의 그와 같은 차원들은 에너지 체계들, 관념 체계들, 그리고 영 체계들의 통일을 통하여 두루 나온다.

2:7.12 (43.5) 진리는 응집력이 있고, 아름다움은 끌어당기며, 선(善)은 안정을 이룬다. 실제인 이들 가치들이 개인성 체험 속에서 조화-협동될 때, 그 결과는 지혜에 의해

조건이 갖추어지고 충성에 의해 분별화되는 높은 계층의 사랑이다. 모든 우주 교육의 실제적인 목적은 세계들의 고립된 자녀가 그의 확대되는 체험의 더 큰 실체들과 더 나은 조화-협동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실체는 인간 차원에서는 유한하고, 좀 더 높은 그리고 신성한 차원들에서는 무한하고 영원하다.

2:7.13 (43.5) [유버사에 있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들의 권한에 의해 활동하는 신성한 조언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3 편 하느님의 속성

3:0.1 (44.1) 하느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우주 아버지는 영원의 순환계를 통치하신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들의 개인 속에서, 나아가 그는 이 아들들을 통하여 생명을 증여함으로서, 지역우주 안에서 통치하신다. "하느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생명은 그의 아들들 안에 있다." 하느님의 이 창조자 아들들은 시간의 구역들에서의, 그리고 공간의 진화 우주들의 소용돌이치는 행성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그 자신의 개인적 표현이다.

3:0.2 (44.2) 고도로 개인성구현된 하느님의 아들들은 피조 지능존재들의 낮은 계층들에 의해 분명하게 식별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무한하고 그리하여 잘 식별할 수 없는 아버지의 불가시성(不可視性)을 보상한다. 우주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들은, 파라다이스 신들의 개인성 안에 그리고 영원의 순환계 안에 선천적인 절대성과 무한성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렇게 한편 눈에 보일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계시이다.

3:0.3 (44.3) 창조자관계는 하느님의 속성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그의 활동본성의 집합이다. 그리고 창조자관계의 이 우주 기능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무한하고도 신성한 실체의 모든 조화-협동 속성들에 의해 그것이 조절되고 통제되는 것으로 영원하게 현시된다. 우리는 신성한 본성 중 어느 한 특징이 다른 것들보다 선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정으로 의문스럽다, 만일 그 경우가 사실이었다면, 신(神)의 창조자관계 본성은 다른 모든 본성들, 활동들 그리고 속성들보다 선행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신(神)의 창조자관계는 하느님이 아버지신분이라는 우주 진리에서 정점을 이룬다.

제 1 장. 하느님의 어디에나-계심

3:1.1 (44.4) 어디에나 그리고 동시에 현존할 수 있는 우주 아버지의 능력이 그의 전재(全在)를 이룩한다. 하느님 홀로만 두 곳에, 수많은 곳에 동시에 계실 수 있다. 하느님은 “위에 있는 하늘에 그리고 아래에 있는 땅에” 동시에 현존하시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쳤다: “당신의 영으로부터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으며 당신의 현존으로부터 내가 어디로 도망 갈 수 있겠습니까?”

3:1.2 (44.5) “주님은 ‘나는 멀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도 있는 하느님이다’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않느냐?’” 우주 아버지는 그의 멀리-퍼지는 창조 안에서 모든 부분들 속에 그리고 모든 가슴 속에 항상 계신다. 그는 “만물을 채우고 만물 속에 충만한”, 그리고 “만물 속에서 모든 일을 하는 그의 충만함”이며, 더 나아가, 그의 개인성의 개념은 “하늘(우주)과 하늘들의 하늘(우주들의 우주)도 그를 담을 수 없다”는 것과 같다. 하느님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속에 계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참말이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느님의 전부가 아니다. 무한자는 오직 무한 속에서만 최종적으로 드러날 수 있으며, 원인은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는 결코 충만하게

이해될 수 없다; 살아 계시는 하느님은 그의 속박되지 않는 자유 의지의 창조적 활동들의 결과로서 존재로 되어 온 그 창조의 전체 총계보다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다. 하느님은 조화우주에 두루 계시되지만, 그 조화우주는 결코 하느님의 무한성 전체를 포함하거나 둘러쌀 수 없다.

3:1.3 (45.1) 아버지의 현존은 주(主)우주 를 끊임없이 순찰한다. “그의 나아감은 하늘 끝으로부터 이고, 그의 순환회로는 그 끝까지 이고, 아무 것도 그 빛으로부터 숨겨진 것이 없다.”

3:1.4 (45.1) 창조체가 하느님 안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도 또한 창조체 속에 사신다. “그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며; 그가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파라다이스 아버지로부터의 이 선물은 사람의 떨어질 수 없는 동행자이다.” “그는 언제까지나-계시는 모든 것에-스며드는 하느님이다.” “영속하시는 아버지의 영은 모든 필사 자녀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 “사람은 친구를 찾아 나아가지만, 바로 그 친구는 그의 가슴속에 살아있다.” “참된 하느님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일부분이다; 그의 영은 우리 안에서 말한다.” “아버지는

자녀안에 사신다. 하느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는 영원한 운명의 안내하는 영이다.”

3:1.5 (45.1) 인간 종족이 “너희는 하느님께 속한다.”고 말을 들어온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느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느님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진실이다. 그릇된 행위를 할 때에도 역시 너희는 내주하는 하느님의 선물을 괴롭히는데, 이는 생각 조절자가 그를 가두어 놓고있는 인간 마음과 함께 악하게 생각하는 귀결들을 두루 거치며 가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3:1.6 (45.1) 하느님의 전재(全在)는 실체 안에서 그의 무한한 본성의 일부분이다; 공간은 신(神)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오직 파라다이스에서 그리고 중앙우주 안에서만. 하느님은 완전성으로 그리고 제한 없이, 식별될 수 있도록 현존한다. 따라서 그는 하보나를 감싸고 있는 창조계에서는 눈에 보이도록 현존하지 않으시는데, 이는 하느님이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의 조화-협동 창조자들과 통치자들의 주권과 신성한 특권들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직접적이고 실재적인 현존을 제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성한 현존의 개념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 그리고 파라다이스 섬의 현존 순환회로를 포함하는 현시활동의 형식과 경로, 둘 모두의 넓은 범주를 고려해야 한다. 우주 아버지의 현존과 그의 영원한 조화-협동자들 그리고 대리자들의 활동은 항상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의 변하지 않는 목적의 모든 무한한 요구들을 그렇게 완전하게 충족시킨다. 그러나 개인성 순환회로와 조절자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여기에서 하느님은 독특하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활동하신다.

3:1.7 (45.1) 우주 통제자는 우주의 모든 부분에 있는 파라다이스 섬의 중력 순환회로 속에, 질량에 따라서, 이 현존에 대한 물리적 요구에 응답하여 그리고 만물을 응집하고 그의 안에 존재하도록 만드는 모든 창조의 선천적 본성으로 인하여, 동시에 그리고 똑같은 정도로 잠재적으로 현존한다. 마찬가지로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분별불가 절대자, 영원한 미래에 속하는 창조되지 않은 우주들의 저장소 안에 잠재적으로 현존한다. 하느님은 그렇게 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물리적 우주들 속에 잠재적으로 가득 퍼져있다. 그는 소위 물질적 창조의

응집성의 시원적 기초이다. 이 비(非)영적 신(神)의 잠재는, 우주 활동의 단계에서 그의 독점적 대리자들 중 어느 하나의 불가해(不可解)한 침입으로 인하여 물리적 실존들의 차원에 두루 여기저기에서 실재적이 된다.

3:1.8 (45.1) 하느님의 마음 현존은 공동 행위자, 무한한 영의 절대 마음과 상관관계되어 있지만, 유한 창조계에서는 그것이 파라다이스 주(主) 영들의 조화우주 마음이 기능하는 모든 곳에서 좀 더 잘 식별된다. 첫째근원이며 중심이 공동 행위자의 마음 순환회로들 안에 잠재적으로 현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우주 절대자의 긴장들 속에 잠재적으로 현존한다. 그러나 인간 계층의 마음은 공동 행위자의 딸들, 진화 우주들의 신성한 사명활동자들의 증여물이다.

3:1.9 (46.1) 우주 아버지의 어디에나-있는 영은 영원한 아들의 우주 영 현존 그리고 신(神) 절대자의 영속하는 신성한 잠재의 기능과 조화-협동된다. 그러나 영원한 아들 그리고 그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영적 활동은 물론이고 무한한 영의 마음 증여들까지도, 그의 피조 자녀들의 가슴속에

있는 하느님의 내주하는 단편들인 생각 조절자들의 직접적 행동을 제외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3:1.10 (46.2) 행성, 체계, 별자리 또는 우주 안에서의 하느님의 현존에 관하여, 어떤 창조적 단위에서든지 그러한 현존의 정도는 최극존재의 진화하는 현존의 정도의 척도가 된다: 그것은 체계들 그리고 행성들 자체에 이르기까지 점차로 약해지는, 광대한 우주의 부분에서 하느님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그리고 그에 대한 충성심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러므로 때때로 하느님의 고귀한 현존의 이 위상들을 보존하고 보호하려는 희망에서, 어떤 행성들(또는 심지어는 체계들)이 영적 어두움 안으로 깊이 빠졌을 때,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격리되거나 또는 보다 큰 창조 단위들과의 내적 교제로부터 부분적으로 고립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유란시아에서 작용되고 있듯이, 그 세계들의 다수가, 완고하고 사악하며 반역적인 소수의 따로 떨어지는 행위로 인한 고립이 만드는 귀결의 고통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어하는 반응이다.

3:1.11 (46.3) 아버지가 모든 그의 아들들—모든 개인성들—을 어버이로서 순환회로 안에 두지만, 그들 안에서의 그의 영향력은 신(神)의 둘째 그리고 셋째 개인들로부터 그들의 기원이 멀리 떨어져있음에 의해 제한되고, 그들의 운명 달성이 그러한 차원들에 가까이 감에 따라 증강된다. 창조체 마음들 안에 하느님이 현존한다는 사실은 신비 감시자들과 같은 아버지 단편들이 그들에게 내주하느냐 안하느냐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의 효력적인 현존은 그들이 머무는 마음들이 이 내주하는 조절자들과 조화되는 협동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3:1.12 (46.4) 아버지의 현존의 동요들은 하느님의 가변성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고 해서, 격리되어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며; 그의 애정은 창조체의 그릇된 행위로 인하여 멀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선택의 힘을(자기 자신에 관하여) 자질로서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은, 선택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들 자신의 가슴과 혼 안에서의 아버지의 신성한 영향력의 정도와 한계들을 직접 결정한다. 아버지는 제한과 편애함이 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무상으로 증여하셨다. 그는 개인들, 행성들, 체계들 또는 우주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시간 구역들에서 그는 칠중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개인성들, 유한한 우주들의 조화-협동
창조자들에게만 서로 다른 명예를 수여한다.

제 2 장. 하느님의 무한한 힘

3:2.1 (46.5) 모든 우주들은 "전능한 주님 하느님이 지배하심"을
안다. 이 세계와 다른 세계들의 관련사들은 신성하게
감독된다. "그는 하늘 군대 속에서 그리고 이 땅의
거주자들 가운데에서 그의 뜻대로 행하신다." "하느님의
힘 이외에는 아무 힘도 없다"는 말은 영원히 참되다.

3:2.2 (46.6) 신성한 본성과 일치되는 그 한계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참이다. 사람들, 행성들 그리고 우주들이 길게 이어져 겪는
진화과정들은 우주 창조자들과 행정-관리자들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있으며 우주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에
일치하여 펼쳐진다. 조화와 질서 속에서 그리고 하느님의
모든-지혜이신 계획과 일치하여 진행한다. 오직 한 분의
입법자만이 있다. 그는 세계들을 공간에 유지시키고
영원한 순환회로의 끝없는 순환계를 따라 우주들을
휘둘게 하는 회전을 시킨다.

3:2.3 (47.1) 모든 신성한 속성들 중에서 그의 전능하심은, 특히 그것이 물질적 우주 안에 널리 퍼져있어, 가장 잘 납득된다. 비(非)영적 현상으로 본다면, 하느님은 에너지이다. 물리적 사실에 대한 이 선언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이 모든 공간의 우주의 물리적 현상의 시원적 원인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 신성한 활동으로부터 모든 물리적 에너지와 다른 물질적 현시활동들이 도래된다. 빛, 이것은, 열이 없는 빛은, 신(神)들의 비(非)영적 현시활동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리고 유란시아에 실질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비(非)영적 에너지 형태가 존재한다; 그것은 아직 인지되지 않고 있다.

3:2.4 (47.2) 하느님은 모든 힘들을 통제하시며; 그는 “번개가 지나가는 길”을 만드셨으며; 그는 모든 에너지의 순환회로들을 정하셨다. 그는 에너지-물질의 모든 형태의 현시활동 시간과 방법을 정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영속하는 장악 안에—하부 파라다이스에 중심을 두는 중력의 통제 속에—언제까지나 붙들려 있다. 영원한 하느님의 빛과 에너지는 그의 장엄한 순환회로, 곧 우주들의 우주를 구성하는 별 무리들의 끝없는 그러나 계층적인 행렬을 따라 그렇게 영원히 휘돌아 회전한다.

모든 창조체는 파라다이스-만물과 존재들의 개인성 중심을 영원히 돈다.

3:2.5 (47.3) 아버지의 전능하심은, 물질적 마음적 그리고 영적 세 에너지들이 그에게 아주 근접된 가운데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곳—만물의 근원, 절대 차원이 지배하는 모든 곳에 속한다. 파라다이스 단일소(單一素)도 아니고 파라다이스 영도 아닌, 창조체 마음은 우주 아버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응답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생각 조절자들을 통하여 불완전성의 마음과 함께—유란시아 필사자들과 함께 조절하신다.

3:2.6 (47.4) 우주 아버지는 과도기적인 기세나 뒤바뀌는 힘 또는 동요하는 에너지가 아니다. 아버지의 힘과 지혜는 어떤 그리고 모든 우주 위급사태들에 대처하기에 전적으로 충분하다. 인간 체험의 긴급사태들이 나타날 때, 그는 그들 모두를 예견해 왔고, 따라서 그는 분리된 방법으로 우주의 관련사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지혜의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무한한 심판의 명령들의 조화 속에서 반응한다. 겉으로 나타난

것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힘은 우주 안에서 맹목적인
기세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3:2.7 (47.5) 긴급 통치가 이루어졌고, 자연 법칙이 중지되었고,
그릇된 적응이 인정되었고, 그리고 그 상황을 시정하도록
어떤 수고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느님에 대한 그러한 개념들은 너희 관점의 제한된
범위에서, 너희 이해력의 유한성에서, 그리고 너희의
한정된 검사 범위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하느님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납득은 영역의 상급 법의 실존, 아버지의
성격의 장엄, 그의 속성의 무한, 그리고 그의 자유-
의지함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너희가 깊은 무지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3:2.8 (47.6) 공간의 우주들에 두루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영이
내주하는 행성 창조체들은, 그 수와 계층에 있어서 너무나
무한에 가깝고, 그들의 지능들은 너무나 다양하며,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제한되고 때로는 조잡하며, 그들의 시야는
너무나 단편적이고 지엽적이어서, 아버지의 무한
속성들을 알맞게 표현할 수 있는 개괄적인 법칙을 만들고

동시에 이들 피조 지능체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너희 창조체에게는, 만능이신 창조자의 행위들 중 많은 것이 독단적이고, 개별적이고, 종종 냉혹하고 잔인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단언한다. 하느님의 행위들은 모두 목적이 있고, 지능적이고, 현명하고, 친절하며, 최상의 선을 영원히 고려하는데, 언제나 한 개별존재나 개별종족이나 개별행성 또는 심지어 개별우주를 위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들은 가장 낮은 자들로부터 가장 높은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관계된 모든 존재의 복지와 최상의 선(善)을 위한 것이다. 시간의 섭리시대에 있어서 일부분의 복지가 어떤 경우에는 전체의 복지와 다른 것처럼 나타나는데; 영원의 순환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외견상의 차이들은 실존하지 않는다.

3:2.9 (48.1)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가족의 일원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가족 단련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를 그토록 혼란시키고 혼동시키는 하느님의 활동들 중 많은 부분은 모든-지혜의 결정들과 최종적 통치들의 결과이다, 공동 행위자에게 힘을 부여하면서 무한 마음의 결코

틀림없는 의지가 선택하는 것을 집행하고, 완전의 개인성의 결정들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의 탐색, 시각 그리고 심려는 모든 그의 광대한 그리고 멀리-퍼지는 창조계의 가장 높은 것과 영원한 복지를 포옹하고 있다.

3:2.10 (48.2) 그래서, 너희가 보거나 이해하거나 또는 알 수 없는 많은 신성한 행위들의 지혜와 친절함이, 너희에게 그렇게 부쉬 버리는 냉혹함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너희 이웃 창조체들의 행성 행복과 개인 번영에 대해, 위로와 복지에 대해 그렇게 철저한 무관심으로 특징 지워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러한 어떤 장애를 만들게 하는 것은 너희의 분리되고 단편적이고 유한하고 조잡하고 매우 물질적인 관점과 그리고 너희 존재의 본성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는 한계들이다. 너희가 하느님의 동기들을 잘못 납득하고 목적들을 오해하는 것은, 인간 시야의 한계 때문이고, 너희의 한정된 납득과 그리고 유한한 납득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 아버지의 개인적 행위들이 아닌 많은 것들이 진화 세계에서 발생한다.

3:2.11 (48.3) 신성한 전능은 하느님의 개인성의 다른 속성들과 완전하게 조화-협동을 이룬다. 하느님의 힘은, 대개, 그

우주 영적 현시활동 속에서 세 가지 조건 또는 상황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3:2.12 (48.4) 1. 하느님의 본성에 의해, 특별히 그의 무한한 사랑에 의해,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善)에 의해.

3:2.13 (48.5) 2. 하느님의 뜻에 의해, 그의 자비로운 사명활동 그리고 우주의 개인성들과의 아버지로서의 관계에 의해.

3:2.14 (48.6) 3. 하느님의 법에 의해, 영원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정의(正義)와 공의(公義)에 의해.

3:2.15 (48.6) 하느님은 힘에 있어서 무제한적이고, 본성에 있어서 신성하고, 의지에 있어서 최종이고, 속성들에 있어서 무한하고, 지혜에 있어서 영원하며, 실체에 있어서 절대이다. 그러나 우주 아버지의 이 모든 특징들은 신(神) 안에서 합일되어 있고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 그리고 삼위일체의 신성한 아들들 안에서 우주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와는 달리, 파라다이스 그리고 하보나라는 중앙우주 밖에서는, 하느님께 속하는 모든 것이 최극자의 진화적 현존으로 제한되고, 궁극위의 결국 생겨나고 있는 현존으로 조절되며, 세 실존적

절대자들—신, 우주, 그리고 분별불가—로 조화-협동된다.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은 그러한 것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된다.

제 3 장. 하느님의 우주 지식

3:3.1 (48.8)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신성한 마음은 모든
창조체의 생각을 의식하고 그것을 밝히 알고 있다.
사건들에 대한 그의 지식은 우주적이며 완전하다.
그로부터 나아가는 신성한 실존개체들은 그의
일부분이다; “구름을 저울로 다는” 그 분은 “지식에
있어서도 완전하다.” “주님의 눈은 어디에나 있다.” 너희
위대한 선생이 하찮은 참새에 대하여, “그들 중 하나도 내
아버지께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으며,” 그리고 “너희 머리에 있는 바로 그 머리카락
숫자도 헤아리신다.”고 말하였다.” 그는 별들의 숫자를
말하며; 그것들을 그 이름대로 부른다.”

3:3.2 (49.1) 우주 아버지는 공간의 별들과 행성들의 숫자를
실재로 아는 온 우주 안에서의 유일한 개인성이시다.
각각의 우주에 속한 모든 세계들은 끊임없이 하느님의
의식 안에 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씀 하신다: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아왔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왔으며, 그들의 슬픔을 알고 있다.” 이는 “주님은 하늘로부터 바라보며; 모든 사람의 아들들을 보시며; 그의 거처에서 땅에 있는 모든 거주자들을 내려다보시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체 자녀는 실제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는 내가 가는 길을 아시며, 그가 나를 다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그는 멀리에서 우리 생각을 납득하시고 모든 우리의 길을 잘 아신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그 분의 눈앞에 모든 것들이 벌거벗었고 드러나 있다.” 그리고 “그가 너희의 구조를 아시며; 너희가 티끌임을 기억 하신다”는 것을 납득하는 것은 모든 인간 존재들에게 실제로 위로가 될 것이다. 예수는, 살아 계신 하느님에 대해,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에게 요청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였다.

3:3.3 (49.2) 하느님은 모든 것들을 아는 무제한적 힘을 소유하고 계시며; 그의 의식은 우주적이다. 그의 개인성 순환회로는 모든 개인들을 에워싸며, 심지어 낮은 창조체에 대한 것이라도 그의 지식은 내려오는 일련의

신성한 아들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리고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들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보완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한한 영이 항상 어디서나 현존한다.

3:3.4 (49.3) 우리는 하느님이 죄의 사건들을 미리 아시기로
선택하는지 아니하는지 전적으로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느님이 자기 자녀들의 자유의지 활동들을 미리
아신다 하더라도, 그러한 선견(先見)은 그들의 자유를
조금도 폐기시키지 않는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하느님은
결코 놀라지 않는다.

3:3.5 (49.4) 전능은 행할 수-없는것, 하느님과-같지-않음의
행위를 하는 힘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전지성은
알 수 없는 것들을 아는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말들은 유한 마음에게는 거의 납득시킬 수 없다.
창조체는 창조자의 뜻의 범위와 한계들을 거의 납득할 수
없다.

제 4 장. 하느님의 한계 없으심

3:4.1 (49.5) 우주들이 생겨나게 됨에 따른 그것들에 대한
자신의 연속적 증여는 그것들이 신(神)의 중앙 개인성 속에
계속 존재하고 머무르고 있을 때의 힘의 잠재 또는 지혜의

저장고를 결코 경감시키지 않는다. 기세와 지혜 그리고 사랑의 잠재에 있어서 아버지는, 파라다이스 아들들에 대한, 그의 종속 창조에 대한, 그리고 그것의 다양한 창조체에 대한 아낌없는 자기증여의 결과로, 그의 소유 중 어떤 것도 줄어들지 않으며 그의 영광스러운 개인성의 어떤 속성도 빼앗기지 않는다.

3:4.2 (49.6) 모든 새로운 우주의 창조는 중력의 새로운 조절을 요구한다; 그러나 비록 창조가 무기한적으로, 영원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무한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결국에는 물질적 창조가 한도 없이 존재하게 된다 하더라도, 파라다이스 섬에 평온히 있는 통제와 조화-협동의 힘은 그러한 무한한 우주에 대한 지배, 통제 그리고 조화-협동에 상응하고 또한 그것에 알맞은 것으로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한없는 우주에 대한 무제한적 기세와 힘의 이 증여 이후에, 무한자는 여전히 같은 정도의 기세와 에너지로 충전되어 있을 것이다; 분별불가 절대자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은 마치 기세, 에너지 그리고 힘이 우주와 우주마다의 자질을 쏟아 내지 않았던 것과 똑같이, 동일한 무한한 잠재를 여전히 소유하신다.

3:4.3 (50.1)

그리고 지혜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영역들의 사고(思考)에 그토록 자유롭게 배분된다는 사실이 신성한 지혜의 중앙 근원을 조금도 허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우주들이 몇 배가 되고 영역의 존재들이 포용의 한계까지 숫자가 늘어나고, 마음이 이 높고 낮은 지위의 존재들에게 증여되는 일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된다 해도, 하느님의 중앙 개인성은 똑같이 영원하고 무한하며 모든-지혜 마음을 여전히 계속하여 포용할 것이다.

3:4.4 (50.2)

그가 너희 세계 그리고 다른 세계들의 남자와 여자들에게 내주하도록 자신으로부터 영(靈) 메신저들을 보낸다는 사실은, 신성하고 만능이신 영 개인성으로서 기능하는 그의 능력을 조금도 줄이지 않는다; 그가 보낼 수 있고 또 보내게 될 그러한 영 감시자들의 범위와 숫자에는 절대적으로 제한이 없다. 이렇게 그의 창조체들에게 자신을 내어준은, 신성하게 자질로서 부여받은 이 필사자들을 위한 진보하고 연속하는 실존의 무한한, 거의 믿을 수 없는 미래 가능성을 창조한다. 그리고 사명활동하는 이들 영 실존개체들로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분배하는 이 일은, 모든-지혜, 모든 것-아심, 그리고 만능이신 아버지의 개인 안에 평온히 있는 진리

그리고 지식의 지혜로움과 완전성을 조금도 경감시키지 않는다.

3:4.5 (50.3) 시간의 필사자들에게는 미래가 있지만, 하느님은 영원 속에 거하신다. 비록 내가 신(神)이 거하는 바로 그곳 근처로부터 흠어져 나왔지만, 나는 여러 신성한 속성들의 무한성에 관하여 납득의 완전성으로 말한다고는 감히 할 수 없다. 마음의 무한만이 실존의 무한과 행동의 영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3:4.6 (50.4) 필사 사람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무한성을 알 길이 없다. 유한 마음은 그러한 절대 진리 또는 사실을 생각해 낼 수 없다. 그러나 바로 이, 유한 인간 존재는 그러한 무한 아버지 사랑의 충만하고도 경감되지 않은 영향을 실재적으로 느낄 수— 글자 그대로 체험할 수—있다. 그러한 사랑은 정말로 체험될 수 있는데, 체험의 본질특성이 무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체험의 양은 영적 접수성에 대한 인간 수용능력에 의해 그리고 이에 답하여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연관된 수용능력에 의해 엄격히 제한을 받는다.

3:4.7 (50.5) 무한한 본질특성에 대하여 유한한 인식이, 그 창조체의 논리상 제한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것은 그 필사 사람이 하느님의 상징을 따라 만들어졌다는—그의 속에 무한의 단편이 살고 있는—사실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에게 사람이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친밀하게 접근하는 일은 사랑에 의해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인데,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독특한 관계 전체는 조화우주의 사회학에서의, 창조자-창조체 관계—아버지-자녀 애정—에 대한 실재적 체험이다.

제 5 장. 아버지의 최극 통치

3:5.1 (50.6) 하보나-이후 창조계에 대한 그의 접촉에 있어서, 우주 아버지는 그의 무한한 힘과 최종적 권한을 직접적인 전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종속 개인성들을 통하여 행사한다. 그리고 하느님은 이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행한다. 위임된 힘의 일부 또는 전부는, 만일 특별한 일이 발생되면, 만일 그것이 신성한 마음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면, 직접 행사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행위는 오직 위임받은 그 개인성이 신성한 신탁을 만족시키는데

실패한 결과로서만 발생할 뿐이다. 그러한 때에 그러한 불이행 앞에서 그리고 신성한 힘과 잠재가 유보되는 한계 안에서, 아버지는 독자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맡겨진 명령에 따라서 행하신다; 그 선택은 항상 어김없는 완전함이고 무한한 지혜의 그것이다.

3:5.2 (51.1)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을 통하여 통치하시며; 우주 조직의 아래로 내려가면, 아버지의 광대한 권역에 속하는 진화 구체들의 운명들을 지도하는 행성영주들에게서 끝이 나는 중단 없는 통치자들의 연결고리가 있다. 다음과 같은 저들 외침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다: “이 땅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은 그것을 충만케 하신다.” “그가 왕들을 폐(廢) 하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신다.” “지고자(至高者)들이 사람들의 왕국에서 통치하신다.”

3:5.3 (51.2) 사람의 가슴속 관련사들에 있어서 우주 아버지는 자신의 방법을 항상 취하지는 아니하더라도; 행성에서의 행위성과 운명에 있어서는 신성한 계획이 널리 퍼져있다; 지혜와 사랑의 영원한 목적이 승리한다.

3:5.4 (51.3) 예수는 말씀하였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들보다 크시며; 누구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뺏을 수 없다.” 너희가 하느님의 거의 한없는 창조의 다양한 일들을 얼핏 바라보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광대함을 볼 때, 너희는 그의 시원성에 대한 너희 개념에 있어서 움찔 할 수도 있겠지만, 너희는 그가, 모든 것들의 파라다이스 중심에서 확실하게 그리고 영속적으로 보좌에 올라 있으며, 그리고 모든 지능 존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임을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모든 것 위에 그리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한 분 하느님 그리고 모두의 아버지”가 계시며, “그는 모든 것들 이전에 계시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

3:5.5 (51.4) 생명의 불확실성과 실존의 변천성은 하느님의 우주 주권에 대한 개념에 어떤 방법으로도 모순되지 않는다. 모든 진화 창조체 삶은 어떤 불가피성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다음을 고려해 보라:

3:5.6 (51.5) 1. 용기—성격의 강한 힘—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실망에 반응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다.

3:5.7 (51.6)

2. 이타심—자기 동료에 대한 봉사—이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삶의 체험이 사회적 불평등과 마주치는 상황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3:5.8 (51.7)

3. 소망—신뢰의 절정—이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인간 실존은 불안정성과 되풀이되는 불확실성에 끊임없이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3:5.9 (51.8)

4. 신앙—인간적 생각의 최극 확신—이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은 그것이 믿을 수 있는 것보다 항상 조금 아는 곤란한 궁지에서, 바로 그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3:5.10 (51.9)

5. 진리에 대한 사랑과 그것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기꺼이 따름이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잘못이 존재하고 허위가 항상 가능한 세계 속에서 자라야만 한다.

3:5.11 (51.10)

6. 이상주의—신성한 것에 다가가는 개념—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상대적 선함과 아름다움의 환경, 더 나은 것들에 도달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적 환경 속에서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3:5.12 (51.11)

7. 충성—가장 높은 의무에 대한 헌신—이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배반과 이탈의 가능들의 한 가운데에서 견디어내야 한다. 의무에 헌신하는 용기는 불이행의 위험이 암시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3:5.13 (51.12)

8. 사심-없음—자아-잊어버림의 영(靈)-이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필사 사람은 인정받음과 명예를 위하여 끊임없이 외치는 피할 수 없는 자아의 함성과 마주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은 만일 버리려는 그 어떤 자아-일생도 없었다면, 신성한 일생을 역동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다. 만일 대비에 의하여 선(善)을 드높이고 차별화 하는 그 어떤 잠재적 악(惡)이 없었다면, 사람은 정의(正義)위에 구원하는 손잡이를 결코 놓을 수가 없다.

3:5.14 (51.13)

9. 기쁨—행복에 대한 만족감—이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가능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그와 대비되는 다른 쪽인 고통과 그리고 고난 받을 가망이 언제나-현존하는 그런 세계에서 살아야만 한다.

3:5.15 (52.1)

우주에 두루, 각 단위는 전체의 일부분으로 간주된다. 부분의 생존은 전체의 계획 그리고 목적과의 협동,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행하고자 하는 전심의 욕구와

완전히 자진하는 마음에 의존한다. 잘못(어리석은 심판의 가능성)이 없는 유일한 진화 세계는 자유로운 지능존재가 없는 세계일 것이다. 하보나 우주에는 그들의 완전한 거주민들을 갖는 10억 개의 완전한 세계들이 있지만, 진화하는 사람은 만일 그가 자유롭게 되고자 한다면 잘못을 범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롭게 체험이 없는 지능존재는 처음에는 도저히 한결같이 현명할 수 없다. 오류인 판단(악)의 가능성은 인간 의지가 의식적으로 시인하고 고의적으로 비도덕적 판단을 알면서 포용할 때에만 죄가 된다.

3:5.16 (52.2) 진리와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에 대한 완전한 인식은 신성한 우주의 완전성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다. 하보나 세계들의 거주민들은 선택의 자극으로서 상대적 가치 차원이라는 잠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한 완전한 존재들은 대조되는 그리고 생각을-강요하는 전체 도덕적 상황들이 없을 때에도 선한 것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완전한 존재들은, 도덕적 본성과 영적 지위에 있어서, 실존의 사실이라는 이유로 존재하는 것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선천적인 지위 안에서만 체험적으로 진보를 이룩한다.

필사 사람은 상승하는 후보자로서의 자기지위도 자기 자신의 신앙과 소망에 의해 얻는다. 인간 마음이 파악하고 인간 혼이 획득하는 신성한 모든 것은 체험적 달성이다; 그것은 개인적 체험의 실체이고, 따라서 하보나의 잘못됨이 없는 개인성들의 선천적인 선(善)과 정의로움과는 대조적인 독특한 재산이다.

3:5.17 (52.3) 하보나의 창조체들은 선천적으로 용감하지만, 그들은 인간 감각에서는 용감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친절하고 동정심이 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이타심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들은 즐거운 미래를 기대하는 자들이지만, 불확실한 진화 구체에 속한, 믿음 지닌 필사자들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희망에 부풀지는 않는다. 그들은 우주의 안정성에 있어서 신앙을 갖고 있지만, 필사 사람으로 하여금 동물 지위로부터 파라다이스의 입구까지 의지하여 상승하는 구원의 신앙에 대하여는 전혀 이방인이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만, 그것의 혼-구원 본질특성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 그들은 이상주의자들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태어났다; 그들은 활기 넘치는 선택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그 황홀경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지하다. 그들은

충성되지만, 불이행의 유혹에 부딪쳐서, 전심으로 그리고 총명하게 의무에 헌신하는 전율은 결코 체험한 적이 없다. 그들은 사심-없지만, 호전적인 자아를 당당하게 정복함으로, 그런 차원의 체험을 결코 얻은 적이 없다. 그들은 기쁨을 즐기지만, 그러나 잠재된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기쁨의 그 달콤함은 이해하지 못한다.

제 6 장. 아버지의 시원성(始原性)

3:6.1 (52.4) 신성한 자아없음, 더할 나위 없는 관대함을 가지고, 우주 아버지는 권한을 양도하시고 힘을 위임하시지만, 그는 여전히 시원적이지 않다; 그의 손은 우주의 영역들의 환경에 대한 만능의 지렛대 위에 있다; 그는 모든 최종 결정들을 유보하였으며 밖으로 뻗친, 소용돌이치는, 그리고 항상-돌고 있는 창조의 복지와 운명에 대한, 도전 받을 수 없는 권한을 가지고 그의 영원한 목적의 만능의 거부권을 조금도 틀림없이 행사한다.

3:6.2 (52.5) 하느님의 주권은 무제한적이다; 그것은 모든 창조의 근본적 사실이다. 우주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었다. 우주는 우연한 현상이 아니며, 자아-실존하는 것도 아니다. 우주는 창조의 작품이며 따라서 전적으로 창조자의 뜻에

종속된다. 하느님의 뜻은 신성한 진리, 살아있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진화하는 우주의 완전하게 되는 창조계는 선함—신성에 가까움—과; 잠재적 악—신성으로부터 멀어짐—으로 특징되어 진다.

3:6.3 (53.1) 모든 종교 철학은, 조만간에, 통합된 우주 통치의 개념, 한 하느님의 개념에 도달한다. 우주 원인들은 우주 결과들보다 낮을 수 없다. 우주 생명의 그리고 우주의 마음의 흐름들의 근원은 그들 현시활동의 차원들보다 높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 마음은 더 낮은 계층의 실존을 가지고 일관되게 설명될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은 상급 차원의 생각과 목적 있는 의지의 실체를 깨달음으로써만 정말로 이해될 수 있다. 도덕 존재로서의 사람은 우주 아버지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3:6.4 (53.2) 기계론적 철학자들은 우주적이고 주권적 의지, 그가 그토록 깊숙하게 숭배하는 우주 법칙의 정교한 노작에서 작용하는, 바로 그 주권적 의지에 대한 개념을 거부하는 것처럼 선언한다. 그가 그러한 법칙들이 자아-행동적이고 자아-설명적이 되어야 한다고 착상할 때,

기계론자는 법칙의-창조자에게 정말 생각지도 않은 존경을 보내고 있다!

3:6.5 (53.3)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에 대한 개념의 경우를 제외하고, 하느님을 인간화시키는 일은 큰 실책이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첫째 위대한 근원이며 중심에 대한 관념을 완벽하게 기계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다.

3:6.6 (53.4)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괴로워하시는가? 나는 알지 못한다. 창조자 아들들은 필사자들이 하는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할 수 있고 때로는 그렇다.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은 한정된 감각에서 볼 때 괴로워하신다. 나는 우주 아버지도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그런지는 납득할 수 없으며; 아마도 개인성 순환회로를 통해 또는 생각 조절자들의 개별존재성 그리고 그의 영원한 본성의 다른 증여들을 통해서 일 것이다. 그는 필사 종족들에 대해 “너희의 모든 고통들 속에서 내가 괴로워한다.”고 말씀하였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그리고 동정적인 납득을 의심할 여지없이 체험 하신다; 그는 정말로 괴로워하실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

3:6.7 (53.5) 우주들의 우주의 무한하고 영원한 통치자는 힘, 형태, 에너지, 과정, 원형틀, 원칙, 현존, 그리고 이상화된 실체이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이다; 그는 개인이다; 그는 주권적 의지를 행사하고, 신성에 대한 자아-의식을 체험하며, 창조적 마음의 명령을 실행하고, 영원한 목적의 실현에 대한 만족을 추구하며, 그의 우주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애정을 현시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더욱 개인적인 이 특색들 전체는, 너희 창조자 아들인 미가엘의, 그가 유란시아에 육신화 되었던 동안에, 증여 삶 속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그것들을 살펴봄으로써 더 잘 납득될 수 있다.

3:6.8 (53.6) 아버지 하느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아들 하느님은 사람들을 섬기며; 영 하느님은, 영 하느님의 은혜의 사명활동을 통하여 아들 하느님들이 정해놓은 방법들에 의해 아버지 하느님을 발견하는 늘-상승하는 모험을 하도록 우주의 자녀들에게 영감을 준다.

3:6.9 (53.7) [우주 아버지의 계시를 발표하도록 배정된 신성한 조연자로서, 나는 연이어서 신(神)의 속성들에 대한 이 글을 써왔다.]

제 4 편 우주에 대한 하느님의 관계

4:0.1 (54.1) 우주 아버지는 우주들의 우주의 물질적, 지적, 그리고 영적 현상들에 대하여 , 그가 모든 시간에 두루 이행하는 영원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하느님은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주권 의지에 따라 우주들을 창조하셨으며, 자신의 모든-지혜 그리고 영원한 목적에 따라 그것들을 창조하셨다. 파라다이스 신(神)들과 그들의 최고 연관-동료들을 제외하고 하느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하여 실제로 매우 많이 알고 있는 자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 심지어는 파라다이스의 고귀한 시민들도 신(神)들의 영원한 목적의 본성에 관하여 매우 다양한 견해들을 갖고 있다.

4:0.2 (54.2) 완전한 중앙우주인 하보나를 창조하는 목적이 순수하게 신성한 본성의 만족이었다는 점은 쉽게 추론된다. 하보나는 파라다이스를 향해가는 도중의 시간 순례자들을 위한 완결하는 학교로서 그리고 다른 모든 우주들을 위한 원형틀 창조로서 쓰일 수도 있다; 아무튼, 그러한 천상의 창조는 완전하고 무한한 창조자들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다.

4:0.3 (54.3) 진화하는 필사자들을 완전하게 하는, 그리고, 그들이 파라다이스와 최종의 무리단의 달성 후에, 어떤 알려지지 않은 앞날의 일을 위한 연이은 훈련을 제공하는 놀라운 계획이, 현재로서는, 일곱 초우주들과 그들의 여러 종속부서들의 주요한 일들 중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들을 영성화 시키고 훈련시키는 이 상승 기획은 결코 우주 지능존재들의 유일한 업무는 아니다. 정말로, 시간을 지배하고 천상무리들의 에너지들을 가져오게 만드는 매혹적인 수많은 다른 일들이 있다.

제 1 장. 아버지의 우주 태도

4:1.1 (54.4) 오랫동안 유란시아의 거주민은 하느님의 섭리를 잘못 알아왔다. 너희 세계에 대한 신성한 작용의 섭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많은 필사자들이 그럴 것이라고 상상하는 유치하고 독단적인 물질적 보살핌이 아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우주 자녀들의 영적 진보를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는, 천상의 존재들과 신성한 영들의 상호 연결된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4:1.2 (54.5) 사람에게 행하는 하느님의 일들에 대한 너희 개념에서, 우주의 표어가 진보라는 것을 인지하는 그러한 차원까지 나아갈 수는 없겠는가? 긴 세월 동안 인간 종족은 그 현재 위치에 도달하기 위하여 투쟁해 왔다. 이 모든 수천 년 동안 섭리는 진보적인 진화 계획을 수행해 왔다. 실천에 있어서는 두 가지 생각들이 서로 대립되지 않으며, 오직 사람의 잘못된 개념 속에서만 그러하다. 신성한 섭리는,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참된 인간적 진보에 대하여 결코 정 반대의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 섭리는 최극 입법자의 불변하는 완전한 본성과 항상 일치한다.

4:1.3 (55.1) “하느님은 신실하시고 “모든 그의 계명은 옳습니다.” “그의 신실함은 바로 하늘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말씀은 하늘 안에 언제까지나 확립되었습니다. 당신의 신실함은 모든 세대에 이어지며; 당신이 땅을 지으셨고 그것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는 신실하신 창조자 이십니다.”

4:1.4 (55.2) 아버지가 자신의 목적을 유지시키고 자기 창조체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세들과 개인성들에는 제한이 없다. “영원한 하느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그 아래는 영속하는 방패가 있다.”
“지고자의 비밀한 곳에 거하는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물 것이다.” “보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하여 선함을 이루는 것을
안다,” “이는 주님의 눈이 의로운 자들을 보시고, 그의 귀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4:1.5 (55.3) 하느님은 “자신의 힘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탱한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들이 탄생될 때, 그는 “자기
아들들을 내보내며 그들은 창조된다.” 하느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신다.” 하느님은 모든
물질적 물체들과 모든 영적 존재들을 계속해서
지탱하신다. 우주들은 영원히 안정되어 있다. 외견상
불안정한 그 한가운데에 안정성이 있다. 별들의 영역에
있는 에너지 격변과 물리적 변동 한가운데에는
근저(根底)를 이루는 질서와 안전함이 있다.

4:1.6 (55.4) 우주 아버지는 우주들에 대한 관리로부터 물러나신
적이 없다; 그는 활동하지 않는 신(神)이 아니다. 만일
하느님이 모든 창조의 현재 유지자에서 물러난다면, 우주

붕괴가 즉각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하느님이 없으면, 실체로서 그러한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바로 이 순간에도, 과거의 먼 시대처럼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 하느님은 계속 지탱하신다. 신성한 범위는 영원의 순환계 둘레까지 확장된다. 우주는 태엽이 감긴 만큼 작동하다가 기능을 멈추는 그러한 시계처럼 감겨진 것이 아니다;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새롭게 되고 있다. 아버지는 에너지와 빛과 생명을 끊임없이 쏟아 부으신다. 하느님의 일은 영적일 뿐 아니라 글자 그대로 이다. “그는 북쪽을 빈 공간 너머로 힘껏 뻗게 하시고 땅을 무(無)에 매다신다.”

4:1.7 (55.5) 내 계층에 속하는 존재는 궁극적 조화를 발견할 수 있고 우주 관리-행정의 일상적인 관련사들 속에서 멀리-도달하고 그리고 심오한 조화-협동을 탐지할 수 있다. 필사자 마음에게 흐트러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내가 납득하기로는 질서 정연하고 구조적이다. 그러나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많은 것들이 우주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나는 지역우주들과 초우주들의 인지된 기세, 에너지, 마음, 모론시아, 영 그리고 개인성들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 그리고 다소 정통하다. 나는 어떻게 이들 대리자들과

개인성들이 작용하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납득을 가지고 있으며, 대우주의 인가받은 영 지능존재들의 하는 일을 상세하게 알고 있다. 우주들의 현상에 대한 나의 지식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충분히 알아낼 수 없는 조화우주 반응에 끊임없이 마주치고 있다. 나는 내가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는. 기세, 에너지, 지능 그리고 영들의 상호-연관된, 외견상 우연한 협력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일에 끊임없이 부딪힌다.

4:1.8 (55.6) 나는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 그리고 크게는 파라다이스 섬의 기능에서 직접 생겨나는 모든 현상의 활동을 추적하고 분석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나의 곤혹스러움은 그들의 신비로운 조화-협동, 세 잠재성의 절대자들의 숨씨처럼 보여 지는 것에 부딪힘으로써 생겨난다. 이 절대자들은 물질을 대체하고 마음을 초월하며 영을 산출시킨다. 나는 분별불가 절대자와 신(神) 절대자 그리고 우주 절대자의 현존과 행위의 탓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 복잡한 활동행위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혼동하고 종종 혼란을 겪는다.

4:1.9 (56.1) 이 절대자들은 우주 안에서 널리, 충분히-
게시되지는-않은 현존들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것은
물리학자, 철학자들 또는 심지어 종교인들에게까지도,
공간 잠재력 현상 속에서 그리고 다른 초(超)궁극체들의
역할 속에서, 기세, 개념 또는 영의 시원(始原)존재들이,
어떻게 최극 조절 그리고 궁극적 가치들을 포함하는, 한
복합 실체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요구에 대하여, 정확히
응답하는가에 관하여 확실성을 가지고 예측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4:1.10 (56.2) 조화우주의 사건들의 전체 구조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시간과 공간의 우주에는 또한 유기적
합일체가 있다. 진화하는 최극존재의 이 살아있는 현존,
구체적으로 투사되어진 미완성의 내재성은, 겉보기에
관련이 없는 우주 사건들이 놀랄 만큼 우연한 조화-협동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의해, 때때로 불가해하게 현시된다.
이것은 섭리의 기능—최극존재와 공동 행위자의
영역—임이 틀림없다.

4:1.11 (56.3) 나는 변화 많고 이렇게 잡다하고 겉보기에 희망
없이 혼동된 물리적, 정신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

현상들을 일으키는 것이, 우주 활동의 모든 위상과 형식의
조화-협동과 상호-연관에 대한 이 멀리-퍼지고 일반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통제이고, 그러면서 어김없이 하느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사람들과 천사들의 행복을 위하여
결과를 이룬다고 믿고 싶다.

4:1.12 (56.4)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조화우주의
외견상 “우연한 현상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절대자들의
영원한 조종 속에서의 무한자의 시간-공간 모험의 유한
드라마의 일부이다.

제 2 장. 하느님과 자연

4:2.1 (56.5) 제한된 감각에서 볼 때, 자연은 하느님의 물리적
성향이다. 하느님의 행위성이나 활동은 지역우주, 별자리,
체계, 또는 행성의 실험 계획들과 진화의 원형틀들에 의해
분별화되고 일시적으로 변경된다. 하느님은 널리-퍼지는
주(主)우주 에 두루 명확하고,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신다; 그러나 그는 자기 활동의
원형틀을, 진화적으로 전개되는 유한한 구체적인
투사들의 지역적 목표, 의도 그리고 계획에 맞추어, 각

우주, 별자리, 체계, 행성, 그리고 개인성의 조화-협동되고
균형 잡힌 행위성에 기여하도록, 변경한다.

4:2.2 (56.6) 그러므로 자연은, 필사 사람이 그것을 납득하고
있는 것처럼, 변함없는 신(神)의 숨어있는 기초와 기본
배경 그리고, 지역우주와 별자리와 체계와 행성 기세들
그리고 개인들에 의해 시작되어 왔고 수행되고 있는 지역
계획과 목적과 원형틀과 그리고 조건들의 활동인, 그
활동에 의하여 변경되고, 그 활동을 통하여 동요를
체험하는, 그의 불변 법칙을 나타내 보인다. 예를 들자면:
하느님의 법칙이 네바돈에서 선포되었을 때, 그것들은 이
지역우주의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에 의해 확립된 계획에
의해서 변경된다; 이 모든 것 이외에, 이 법칙들의 작용은
너희 행성에 거주하는 그리고 사타니아라는 너희의 직계
행성 체계에 속하는 어떤 존재들의 잘못과 불이행과
반란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아 왔다.

4:2.3 (56.7) 자연은 두 가지 조화우주 요소의 시간-공간
결과이다. 즉: 첫째는, 파라다이스 신(神)의 불변함, 완전성
그리고 정당함이며 두 번째는,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가외(加外)-파라다이스

창조체들의, 실험에 의한 계획, 집행상의 실책, 반란을 일으키는 잘못, 발육의 불충분함, 그리고 지혜의 불완전성이다. 그러므로 자연은 균일하고 불변이며 장엄하고 굉장한 완전성의 끈을 영원함의 순환계로부터 가져오지만; 각 우주, 각 행성, 그리고 각 개별존재의 삶에 있어서는, 이 자연은 진화 체계와 우주에 속한 창조체들의 행위, 오류 그리고 불충에 의해 변경되고 분별화되며 아마도 훼손될 것이다; 따라서 자연은, 저변은 안정되어 있지만, 항상 변화하는, 게다가 변덕스러운, 분위기에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한 지역우주의 운영과정에 따라 바뀌어져야만 한다.

4:2.4 (57.1) 자연은 미완성된 우주들의 미(未)완결, 악 그리고 죄에 의해 나뉜 파라다이스의 완전성이다. 이 묶은 완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 둘 모두를,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둘 모두를 그렇게 나타낸다. 계속되는 진화는 파라다이스 완전성의 내용을 증강시킴으로써 그리고 악, 잘못 그리고 상대적 실체의 부조화를 줄임으로써 자연을 변경한다.

4:2.5 (57.2) 하느님은 자연 속에 또는 자연의 기세들 중 어떤 것 속에도 직접 계시지 않는데, 이는 자연의 현상은 점진적

진화의 불완전성의 초(超)부담(負擔)이며, 때로는
하느님의 우주 법칙인 파라다이스 기초에 대한 반항적인
반란의 결과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유란시아와 같은
그러한 세계에 나타날 때, 자연은 모든-지혜 그리고
무한하신 하느님에 대한 적절한 표현, 참된 표상, 신실한
묘사가 결코 될 수 없다.

4:2.6 (57.3) 너희 세계에서 자연은 지역우주의 진화 계획에
의한 완전성의 법칙에서의 하나의 분별된-자격이다.
자연은 어떤 한계 안에서, 하느님에 의해 가득 스며든
분별화된 감응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자연이
우주적이고, 따라서 신성한 힘의 하나의 위상이라고 해서
자연을 경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억지인가!
자연은 또한 조화우주 진화 안에서 우주 실험의 발육, 성장,
그리고 진보에서의 미(未)완결된 것, 미완성된 것의
현시활동이다.

4:2.7 (57.4) 자연 세계의 외견상 결함들이, 하느님의 성격
안에서 그에 대응되는 어떠한 결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관찰된 불완전들은 무한함을
영화처럼 묘사하는 계속-움직이는 필름 상영에서의

불가피한 정지-순간에 불과하다. 물질적 사람의 유한 마음으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신성한 실체를 스쳐 지나가며 얼핏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완전성-연속성에 대한 바로 이 결함-중단이다. 신성의 물질적 현시활동들이 사람의 진화적 마음에는 결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오직 필사 사람이 자연의 현상을 자연적 눈, 시간 세계에서 보완되는 대용품인, 모론시아 모타 혹은 계시의 도움을 얻지 않고, 인간적 시각을 통하여 보기를 계속 고집하기 때문이다.

4:2.8 (57.5) 그리고 자연은, 자연의 일부이면서, 그러면서도 시간 속에서 자연의 굴절된 모습을 가져오게 하는 무수한 창조체들의 반란, 그릇된 행위, 그릇된 생각에 의해서 훼손되고, 그 아름다운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으며, 그 모습은 시들어 버렸다. 결단코, 자연은 하느님이 아니다. 자연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제 3 장. 하느님의 변치 않는 성격

4:3.1 (57.6)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은 하느님을 자기 자신과 비슷한 존재로 생각해 왔다. 하느님은 우주들의 우주에 있는 사람이나 그 어떤 다른 존재에 대해서도 질투하지

않으시고, 결코 그런 적이 없었으며,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창조자 아들이 사람을 행성 창조에서의 걸작이 되고, 모든 땅의 통치자가 되도록 의도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의 존재가 자신의 저열한 욕망에 지배당하는 모습, 그리고 나무, 돌, 금 그리고 이기적 야망의 우상 앞에 절하는 광경은—이러한 더러운 장면들이 하느님과 그의 아들이 사람을 위하여 질투가 일어나서 동요하는 것이지, 결코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다.

4:3.2 (57.7) 영원한 하느님은 이러한 인간 감정들의 감각에서 그리고 사람이 그러한 반응들을 납득하는 것처럼, 분노하거나 화를 낼 수가 없다. 이러한 정서들은 비열하고 경멸을 받을만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인간이라 불리는 존재에서의 가치도 도저히 될 수가 없고, 신성이라고는 더욱 할 수 없다; 그러한 태도들은 우주 아버지의 완전한 본성과 자비로운 성격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4:3.3 (58.1)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하느님 납득에 있어서 갖고 있는 어려움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은, 루시퍼 반란과 칼리가스티아 배신의 멀리-미치는 영향들에 기인한다. 죄로 인한 격리됨이 없는 세계들의 경우에는, 진화

종족들이 우주 아버지에 대한 훨씬 더 나은 관념들을
공식화할 수 있다; 그들은 개념의 혼돈, 왜곡 그리고
일탈로부터 덜 고통받는다.

4:3.4 (58.2) 하느님은 언제까지나 행해 왔던, 지금 행하고 있는,
언제까지나 행할, 어떤 것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는 만능이실 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모든-지혜 이시다.
사람의 지혜는 인간 체험의 시도와 잘못으로부터
자라난다; 하느님의 지혜는 그의 무한한 우주 통찰력의
분별불가한 완전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신성한
예지가 창조적 자유의지를 효력적으로 지도한다.

4:3.5 (58.3) 우주 아버지는 결과적으로 슬퍼하거나 후회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밖으로 멀리
퍼져있는 우주들에서, 자신의 창조자 개인성들이
계획하고 그리고 만든 의지 창조체들은, 그들의 불행한
선택에 의해, 때때로 그들의 창조자 부모들의 개인성
안에서 신성한 슬픔의 감정들을 일으킨다. 그러나 비록
아버지가 오류를 하지 않고, 후회를 품지도 않고, 슬픔을
체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아버지의 애정을 가진
존재이며, 우주들의 영-달성 계획들 그리고 필사-상승

정책들에 의해 그토록 자유롭게 제공되어 온 도움으로 그들이 다다를 수 있는 영적 차원에 도달하는 데 그의 자녀들이 실패할 때 그의 가슴은 확실히 애통해 하신다.

4:3.6 (58.4) 아버지의 무한한 선함은 시간의 유한한 마음의 이해력을 초월한다; 따라서 적절한 선의 모든 위상들에 대한 효력적인 표현을 위하여 상대적인 악(죄가 아니라)에 대해 항상 대조될 수 있게 잘 제공되어야만 한다. 신성한 선의 완전성은 통찰력의 필사 불완전성에 의해 식별될 수 있는데, 그것은 오직 공간 운동의 시간과 물질의 관계에서 그것이 상대적 불완전성과 대조적 관계적-연합 속에 있기 때문이다.

4:3.7 (58.5) 하느님의 성격은 무한하게 초인간적이다; 따라서 신성의 그러한 본성은, 신성한 아들들 안에서처럼, 그것이 사람의 유한 마음에 의해 신앙-파악될 수 있기 전이라도, 개인성구현되어야만 한다.

제 4 장. 하느님에 대한 실현

4:4.1 (58.6) 하느님만이 전체우주들의 우주 안에서 유일하게 고정되고 자아-억제된 변함없는 존재인데, 밖이 없고 초월도 없고 과거도 없으며 미래도 없다. 하느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에너지(창조 영)이고 절대 의지이며, 이것들은 자아-실존적이며 보편적이다.

4:4.2 (58.7) 하느님이 자아-실존적이시기 때문에, 그는 절대적으로 독립적이지 않다. 하느님의 바로 그 정체성은 변화와 반대된다. “나,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불변이다; 그러나 너희가 파라다이스 지위를 성취하기 전에는, 하느님이 어떻게 단순함으로부터 복잡함으로, 일치로부터 변화로, 정지로부터 운동으로, 무한으로부터 유한으로, 신성한 것으로부터 인간으로, 그리고 합일체로부터 이원일체(二元一體) 그리고 삼원일체(三元一體)로 옮겨갈 수 있는지를 조금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신성한 불변함이 부동(不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래서 하느님은 그의 절대에 대한 현시활동을 그렇게 변형시킬 수 있다; 하느님은 의지를 갖고 있다—그는 의지이다.

4:4.3 (58.8) 하느님은 절대적 자아-결정의 존재이다; 자아-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우주 반응에 제한이 없고, 그의 자유의지 행위들은 오직 그의 영원한 본성을 선천적으로 특징짓는 신성한 특성본질들과 완전한

속성들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최종적 선(善)의 존재로서 더 나아가 창조적 무한함의 한 자유로운 의지로서 우주에 관계하신다.

4:4.4 (58.9) 아버지-절대자는 중앙 그리고 완전한 우주의 창조자이고 다른 모든 창조자들의 아버지이다. 하느님은 개인성, 선(善), 그리고 수많은 다른 특징들을 사람 그리고 다른 존재들과 공유하시지만, 의지의 무한함은 그에게만 있다. 하느님은 그의 창조적 행위들에 있어서 오직 그의 영원한 본성의 정서에 의해서만, 그리고 그의 무한한 지혜의 명령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하느님은 무한히 완전한 것만을 직접 선택하시고, 따라서 중앙우주는 천상의 완전성이다; 창조자 아들들이 자신의 신성, 심지어는 자신의 절대성의 위상들도 전적으로 공유하는 반면, 그것들은 아버지의 의지 무한함을 지도하는 지혜의 그 최종에 의해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미가엘 계층의 아들관계에 있어서, 창조적 자유의지는 더욱 활동적이 되며, 절대적은 아니더라도, 전적으로 신성하고 거의 궁극적이다. 아버지는 무한하고 영원하지만, 그의 의지적인 자아-제한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그의 의지적인 절대성의 바로 이 개념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4:4.5 (59.1) 하느님의 절대성은 우주 실체의 일곱 차원들 전체에 가득 퍼져 있다. 그리고 이 절대 본성 전체는 그의 우주 창조체 가족에 대한 창조자의 관계에 종속된다. 우주들의 우주에서는 정확성이 삼위일체로서의 공의(公義)의 특징이 되겠지만, 그러나 시간의 창조체들과 맺는 그의 광대한 가족 관계 전체에 있어서는 우주들의 하느님은 신성한 정서에 지배 받는다. 처음과 끝까지—영원히—무한한 하느님은 아버지이시다. 그를 적절하게 알려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명칭들 중에, 나는 모든 창조의 하느님을 우주 아버지로 묘사하도록 배워 왔다.

4:4.6 (59.2) 아버지 하느님 안에서 자유의지 행위는 힘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며 지성으로만 인도되지도 않는다; 신성한 개인성은 영으로 존재하며 그리고 우주에 사랑으로 자신을 현시하는 것으로 정의(定意)된다. 그러므로 우주들의 창조체 개인성들에 대한 그의 모든 개인적 관계에 있어서,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항상 그리고 계속적인 사랑 넘치는 아버지이시다. 하느님은 그 단어의 가장 높은 의미에서 아버지이시다. 그는 신성한 사랑의 완전한 이상주의에 의해 영원토록 동기를 부여받으며, 그

부드러운 본성은 사랑함과 사랑 받음 속에서 그것의 가장 강한 표현과 가장 큰 만족을 찾는다.

4:4.7 (59.3) 과학에 있어서, 하느님은 첫째 원인이다; 종교에 있어서는, 보편적이고 사랑 넘치는 아버지이다; 철학에 있어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며, 실존을 위하여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과 그리고 모든 다른 존재들에게, 실존의 실체를 은혜롭게 수여한다. 그러나 과학의 첫째 원인 그리고 철학의 자아-실존적 합일체가 종교의 하느님, 자비와 선이 가득하고 땅 위에 있는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생존이 임하도록 보장하는 하느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하다.

4:4.8 (59.4) 우리는 무한자의 개념을 갈망한다, 그러나, 우리는 신(神)에 대한 우리의 최고 개념의 개인성과 그리고 신성 요소들을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리고 어느-때든지 파악할 수 있는 수용능력, 하느님에 대한 체험-관념을 경배한다.

4:4.9 (59.5)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간 삶에 대한 자각은, 인간적 한계들의 무서운 장면에 직면할 때 각각의 실존의 되풀이되는 에피소드에 감히 도전하는 그 창조체 신앙에서 생겨나는데, 그것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을지라도 내 몸 속에, 그것을 할 수 있고 또 하게 될,
우주들의 우주 아버지-절대자의 일부가, 살고 있다는
확실한 선언에 의해서이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를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 신앙도 정복하는 승리”이다.

제 5 장. 하느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

4:5.1 (59.6) 종교적 전통은 지나간 시대들의 하느님을-아는
사람들의 체험을 불완전하게 보존한 기록이지만, 그러한
기록들은 종교적 삶을 위한 안내자로서 또는 우주
아버지에 관한 참된 정보의 근원으로서는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 그러한 고대의 믿음들은 원시인이 신화를 만드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에 의해 늘 변형되어 왔다.

4:5.2 (60.1) 하느님의 본성에 관한 유란시아에서의 가장 큰
혼돈의 근원들 중 하나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개인성들 사이 그리고 파라다이스 신(神)과 지역우주
창조자들 그리고 행정-관리자들 사이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의 성스러운 책들이
실패함으로부터 생겨난다. 부분적으로 납득했던 과거
섭리시대들 동안, 너희의 사제들과 선지자들은
행성영주들, 체계 주권자들, 별자리 아버지들, 창조자

아들들, 초우주 통치자들, 최극존재, 그리고 우주 아버지 사이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였다. 생명운반자들 그리고 다양한 천사 계층들과 같은, 종속 개인성들의 메시지들 중 대부분이, 너희 기록들 속에서는, 하느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나타내어 왔다. 유란시아의 종교적 생각은 신(神)의 연관 개인성들과 우주 아버지 자신을 여전히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명칭 속에 포함되어 있다.

4:5.3 (60.2) 유란시아에 속한 민족은 하느님에 대한 원시적 개념들의 영향으로부터 계속 괴로움을 당해오고 있다. 폭풍 속에서 날뛰며 돌아다니는 하느님들; 분노에 차서 땅을 흔들고 화를 내면서 사람들을 때려눕히는; 굶주림과 홍수의 때에 불만의 심판을 내리는—이들은 원시적 종교의 하느님들이다; 그들은 살아서 우주들을 통치하시는 하느님들이 아니다. 그러한 개념들은, 그러한 허구적 하느님들의 변덕스러움의 안내와 지배 아래에 우주가 놓여 있다고 사람들이 가정하였던 그 시기의 유물이다. 그러나 필사 사람은, 최극 창조자들과 최극 통제자들의 행정-관리적 정책들과 행위성과 관련하는 한,

자신이 비교적 법칙과 질서가 갖추어진 영역 속에서 산다는 것을 실현하기 시작한다.

4:5.4 (60.3) 희생 제물들과 고행을 통하여 그리고 심지어는 피를 흘림으로, 성난 하느님을 달래고, 감정이 상한 주님의 비위를 맞추고, 신(神)의 은혜를 얻으려는 야만스러운 관념은, 전혀 미숙하고 원시적인 종교를 대표하며, 과학과 진리로 깨우친 시대에 맞지 않는 철학을 대표한다. 그러한 믿음들은 우주들 안에서 봉사하고 다스리는 천상의 존재들과 신성한 통치자들에게는 철저히 혐오감을 주는 것들이다. 그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또는 가상적인 신성한 진노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죄한 피가 뿌려져야만 된다고 믿거나 고집부리거나 가르치는 것은 하느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4:5.5 (60.4) 히브리인들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가 있을 수 없다.”고 믿었다. 모세가 그의 순진한 베도원 추종자들의 원시적인 마음들 속에서 인간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일을 금지하고 그 대신에 동물을 제례적 희생 제물로 대신하게 하였을 때 뚜렷한 진전을 이루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들은 피를 보지 않고는

달래질 수 없다는 옛날의 이교적 관념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였다.

4:5.6 (60.5) 너희 세계에 대한 파라다이스 아들의 증여는 한 행성 시대를 마감하는 상황 속에 본래 있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것은 하느님의 은혜를 사기 위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이 증여는 창조자 아들이 자신의 우주에 대한 체험적 주권을 얻는 긴 모험여행에 있어서 그의 마지막 개인적 활동이 되게 되어 있었다. 그의 엄격한 아버지로서의 냉담함과 견고한 가슴이 그의 창조체들의 불운과 슬픔에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서, 그의 죄 없는 아들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어 가는 것을 보기까지, 그의 부드러운 자비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가르치는 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성격에 반하여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4:5.7 (60.6) 그러나 유란시아의 거주민들은 우주 아버지의 본성에 관한 이러한 고대의 잘못들과 이교적 미신들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하느님에 관한 진리의 계시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인간 종족은 사람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유란시아에 머물렀던

창조자 아들에 의해 그토록 숭고하게 묘사되었던, 그 모든 성격의 아름다움과 속성들의 사랑스러움으로 우주 아버지를 알도록 운명되어있다.

4:5.8 (61.1) [유버사의 신성한 조언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5 편 개별존재에 대한 하느님의 관계

5:0.1 (62.1) 만일 사람의 유한한 마음이, 우주 아버지처럼 그토록 위대하고 그토록 장엄한 하느님이 어떻게 무한한 완전성 속에 있는 그의 영원한 거처로부터 내려오셔서 개별적 인간 창조체와 형제우애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 그러한 유한한 지성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실재적 단편이, 모든 정상-마음을 가진 그리고 도덕적으로 의식하는 유란시아 필사자의 그 지성 안에 거주한다는 사실의 진리 위에서 신성한 동료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들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영원한 신(神)의 일부분이다. 사람은,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와의 교제를 시도하기 위하여, 이 영적-실체 현존(顯存)에 관한 혼의 깊은 사색에서의 그 자신의 내적 체험보다 더 멀리 나갈 필요가 없다.

5:0.2 (62.2) 하느님은 자신의 영원한 본성의 무한함을 그의 여섯 절대 조화-협동자들의 실존적 실체들에 두루 분배해 왔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그는 자신의 전(前)개인적 단편의 대리자를 통하여 창조의 어떤 부분이나 위상 또는 종류와 직접적인 개인적 접촉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느님은 또한 우주들의 우주의 살아있는 창조체들과 신성한 창조자들에게 개인성을 증여하는 특권을 자신이 보유하여 왔고, 동시에 더 나아가 그는 개인성 순환회로를 통하여 이 개인적 존재들 전체와 직접적인 그리고 어버이로서의 접촉을 유지하는 특권을 보유하여 왔다.

제 1 장. 하느님께 다가가는 길

5:1.1 (62.3) 유한 창조체가, 무한한 하느님께 다가갈 수 없는 것은 선천적인데, 아버지의 무관심에서가 아니고, 창조된 존재들의 유한함과 물질적 한계 때문이다. 우주 실존 중 가장 높은 개인성과 창조된 지능존재들 중 가장 낮은 집단들 사이에 있는 영적 차이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비교적 지능존재의 낮은 계층들이 아버지 자신의 현존 속으로 즉시 전환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그곳에 있음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지금 있는 곳과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우주 아버지의 현존에 대해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필사 사람의 앞에, 그가 가능성의 영역 내에서 우주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현존 속으로의 안전한 행위성을 일관되게 요구할 수 있기 전까지는, 멀고도 먼 길이 있다. 영적으로, 사람은 일곱 주(主) 영들 중 어느 한 분이라도 볼 수 있게 하는 영적 시각을 이룩하게 될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차례 전환되어야만 한다.

5:1.2 (62.4) 우리의 아버지는 숨어있지 않는다; 그는 독단적으로 은둔해 있지 않으시다. 그는 자신의 우주 권역에 있는 자녀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기위하여 신성한 지혜의 자원들을 끊임 없는 노력으로 동원하여 왔다. 그를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는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모든 창조된 존재의 관계적-연합을 그가 갈망하도록 만든 그의 사랑의 장엄에는 무한한 숭고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관대함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유한한 개인성 그리고 물질적 실존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너희 안에 있는 선천적 한계들이, 너희가 필사상승의 여행 목표를 성취하고 만물의 중심에 있는 아버지의 현존 속에서게 되는 시간과 장소와 상황들을 결정한다.

5:1.3 (63.1) 비록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현존에 다가감은 너희가 영 진보의 최고 유한 차원들을 달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너희는, 너희 내면의 혼 그리고 너희의 영성화 하는 자아와 아주 친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아버지의 증여 영과 즉각적 교제가 항상-존재하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기쁨을 향유해야만 한다.

5:1.4 (63.2)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 속한 필사자들은 타고난 능력들과 지적 자질에 있어서 크게 다를 수 있고, 또는 그들은 사회적 발전과 도덕적 진보에 예외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누릴 수도 있거나, 아니면 그들이 문명 예술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보와 문화에 거의 모든 인간적 도움의 부족함에서 오는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승하는 생애에 있어서의 영적 진보에 대한 가능성은 모두에게 동일하다; 영적 통찰력과 조화우주 의미의 증가하는 차원들은 진화 세계에 있는 다양한 물질 환경들의 그러한 모든 사회-도덕적 차이들과는 매우 독립적으로 달성된다.

5:1.5 (63.3)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그들의 지적, 사회적, 경제적, 심지어는 도덕적 기회들과 자질들에 있어서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적 자질은 일정하며 특유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들은 모두 아버지 선물의 동일한 신성한 현존을 누리며, 그들은 모두 신성한 기원을 갖는 내주하는 이 영과의 친밀한 개인적 교제를 추구하는 특권을 똑같이 누리며, 또 한편 그들 모두는 이 신비 감시자들의 일정한 영적 안내를 받아들이기를 똑같이 선택할 수 있다.

5:1.6 (63.4) 만약에 필사 사람이 전심을 다하여 영적으로 동기를 자질로서 부여받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서슴없이 헌신한다면, 그는 내주하는 신성한 조절자에 의해 그렇게 확실하게 그리고 그렇게 효력적인 영적으로 자질로서 부여받기 때문에, 하느님을 아는 고결한 의식과, 그리고 더욱 그와 같아지는 진보적 체험으로 하느님을 발견하기 위한 숭고한 생존의 확신을 그 개별존재의 체험 안에서 물질적으로 변화하는 일에 실패할 수 없다.

5:1.7 (63.5) 사람에게는 살아남는 생각 조절자가 영적으로 내주된다. 만일 그러한 인간 마음이 진지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동기부여를 받는다면, 만일 그러한 인간 혼이 하느님을 알고자 하고 그와 같이 되고자 한다면, 진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신성하게

동기부여를 받은 혼을 파라다이스 입구를 향하여 확실하게 상승하는 일에서 막을 수 있는 어떤 필사자 박탈이란 부정적 영향도 그리고 어떤 훼방 가능한 적극적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

5:1.8 (63.6) 아버지는 모든 그의 창조체들이 자신과의 개인적 교제 안에서 있기를 원하신다. 그는, 그들의 생존지위와 영적 본성이 그러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그들을 받아들일 장소를 파라다이스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언제까지나 너희 철학에 자리 잡게 하라: 너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은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고,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있고, 그 길은 열려 있다; 신성한 사랑의 기세들과 신성한 관리-행정의 방법과 그리고 수단들은 우주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현존을 향한 모든 우주의 모든 가치 있는 지능존재의 진보를 촉진시키려는 노력에서 모두가 서로 연동되어 있다.

5:1.9 (63.7) 하느님에게 도달하기까지 광대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무한자의 현존과 개인성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상승은 일곱 초우주들의 순환회로의

일부분이며, 너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둘레를 돈다 하더라도, 너희는 영으로 그리고 지위 안에서 안쪽을 향해 계속 휘돌아 회전되기를 기대해도 된다. 너희는 구체에서 구체로, 외부 순환회로에서 계속 더 내부 중심 가까이로 전환되고 있음을 믿어도 좋다, 그리고 언젠가는, 너희가 신성한 중앙 현존 안에 서게 될 것을 그리고 상징적으로 말해서 얼굴을 마주하고 그를 보게 될 것임을 의심하지 마라. 그것은 실재적인 그리고 글자 그대로의 영적 차원의 달성에 대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 영적 차원들은 신비 감시자가 내주하였던, 그리고 나중에 그 생각 조절자와 영원히 결합한 어떤 존재든지 달성할 수 있다.

5:1.10 (64.1) 아버지는 영적 은둔 속에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많은 그의 창조체들은 그들 자신의 의지적 결정들의 안개 속으로 스스로 멀리 숨어왔으며, 그들 자신의 비뚤어진 길을 선택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편협한 마음들과 비(非)영적 본성의 자아-주장에 빠짐으로써, 그의 영과 그리고 그의 아들의 영의 교제로부터 스스로를 한동안 분리해온 것이다.

5:1.11 (64.2) 필사 사람은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선택의 힘이 남아 있는 한, 신성한 뜻을 반복적으로 저버릴 수도 있다. 사람의 최종 파멸은 그가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힘을 잃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는다. 자기 자녀들의 필요와 청원에 대하여 아버지의 가슴은 결코 닫힘이 없다. 그의 신성한 뜻을 행하고자—그를 알고자 하고 그와 같이 되하고자 하는—하는 욕망을 그들이 최종적으로 그리고 언제까지나 잃을 때는, 아버지의 이끄는 힘에 대하여 그의 자손이 그들 가슴을 언제까지나 닫을 때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조절자 융합이 그러한 상승자가 아버지의 뜻을 살기로 최종적이고도 취소할 수 없는 선택을 하였음을 우주에 선언할 때 확인된다.

5:1.12 (64.3) 위대하신 하느님은 필사 사람과 직접적 접촉을 만들며 그리고 그의 안에 살고 거주하도록 그의 무한하고 영원하며 이해할 수 없는 자아의 일부분을 내어주신다. 하느님은 사람과 함께 영원한 모험 여행에 오르셨다. 만일 너희가 너희 안의 그리고 너희 둘레의 영적 기세들의 안내를 따른다면, 너희는 공간의 진화 세계들로부터 상승하는 그의 창조체들의 우주 목표로서, 사랑 넘치는

하느님에 의해 수립된 그 높은 운명을 달성하는데 실패할 수 없다.

제 2 장. 하느님의 현존

5:2.1 (64.4) 무한자의 물리적 현존은 물질 우주의 실체이다. 신(神)의 마음 현존은 개별 지적 체험의 깊이에 의해 그리고 진화적 개인성차원에 의해 결정되어야만 한다. 신성의 영적 현존은 우주에서 차별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것은 접수성에서의 영적 수용능력 의해 그리고 신성한 뜻을 행하려는 창조체 의지의 헌납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5:2.2 (64.5) 하느님은 그의 영-탄생 아들들 각자 안에 살아 계신다.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하느님의 현존, "아버지의 오른 손"에 항상 들어갈 수 있으며, 그의 창조체 개인성들 모두는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리고 어떻게 접촉되든지 개인성 순환회로에 관한 것이며, 혹은 그렇지 않다면, 우주 아버지가 중앙 거주지 또는 파라다이스의 일곱 성스러운 구체들 중 하나처럼, 다른 지정 장소에서, 개인적, 자아-의식적 접촉과 그리고 교제를 필요로 한다.

5:2.3 (64.6) 아무튼, 신성한 현존은 자연의 그 어디서나 또는 심지어 하느님을-아는 필사자들의 삶 속에서도, 내주하는 신비 감시자, 파라다이스 생각 조절자와 가지는 너희의 시도된 교제에서처럼 그렇게 충분하게 그리고 그렇게 분명하게 발견될 수는 없다. 우주 아버지의 영이 너희 자신의 마음 안에서 살아 있는 데, 하늘 멀리에서 하느님을 꿈꾸는 것은 얼마나 큰 오류인가!

5:2.4 (64.7) 너희들에게 내주하는 하느님의 단편 때문에, 너희가 조절자의 영적 인도와 조화에서 진보할수록 너희를 둘러싸고 너희에게 밀접하나 그러나 너희 집대성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지는 않는, 다른 영적 영향들의 현존과 변환 힘을 더욱 충분하게 식별하도록 너희가 소망할 수 있다. 너희가 내주하는 조절자와의 가깝고도 긴밀한 접촉을 지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러한 드높여진 체험을 증명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신성한 조절자와의 형제우애관계에 대한 증거는 전적으로 개별 신자의 삶의 체험 속에서 수확되는 영의 열매들의 종류와 크기에 있다. "그들의 열매로서 너희는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5:2.5 (65.1) 빈약하게 영성화된 필사 사람의 물질적 마음이, 파라다이스 조절자처럼 그렇게 신성한 실존개체들의 영 활동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체험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마음과 조절자의 공동 창조인 혼이 더욱 더 실존적으로 되어가면서, 마찬가지로 신비 감시자들의, 그 현존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영 인도와 다른 초물질 활동들을 인식할 수 있는, 혼 의식에서의 새로운 위상이 또한 진화한다.

5:2.6 (65.2) 조절자 교제의 총체적 체험은 도덕적 지위, 정신적 동기부여 그리고 영적 체험을 포함하는 하나의 어떤 것이다. 그러한 어떤 성취인 자아-실현은 주로, 배타적은 아니더라도, 혼 의식의 영역에 국한되지만, 그러나 그 증거들은 모든 그런 내부-영 접촉자들의 삶 속에서 영 열매들의 현시활동에서 나타나며 그리고 풍부하게 있다.

제 3 장. 참된 경배

5:3.1 (65.3) 우주 입장에서 볼 때, 파라다이스 신(神)들은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그러한 존재들과 맺는 그들의 영적 관계에 있어서 하나로 존재하지만, 그들은 또한 별개의 분리된 세 개인들이다. 개인적인 호소와 친교, 그리고 다른

긴밀한 관계들에 관하여 신격(神格)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최고의 감각에서, 우리는 우주 아버지를 그리고 오직 그 분만을 경배한다. 진실로, 우리는 그의 창조자 아들들 안에서 그가 현시되는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배를 받고 찬미를 받는 분은 아버지이시다.

5:3.2 (65.4) 모든 종류의 간청은 영원한 아들 그리고 아들의 영적 조직의 영역에 속한다. 기도, 모든 정식 교통은, 우주 아버지에 대한 찬미와 경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한 지역우주에 관련되는 일들이다; 그것들은 대개 창조자 아들의 관할 영역을 벗어나서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경배는 아버지의 개인성 순환회로 기능에 의해 의심할 여지없이 순환회로에 연결되어 창조자의 개인에게 보내진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조절자-내주 창조체들의 그러한 경의(敬意)의 기록은 아버지의 영 현존에 의해 용이해진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을 입증시키는 굉장히 많은 증거가 존재하며, 나는 아버지 단편들의 모든 계층이, 그들의 주체들의 진실한 찬미를 우주 아버지의 현존 안에 받아질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조절자들은 또한 하느님과 교통하는

전(前)개인적 통로들을 의심할 여지없이 직접 활용하며, 그들은 마찬가지로 영원한 아들의 영-중력 순환회로들도 활용할 수 있다.

5:3.3 (65.5) 경배는 그 자체를 위한 것이다; 기도는 자아-또는 창조체-이익 요소를 체현한다; 이것이 경배와 기도의 큰 차이이다. 참된 경배 속에는 자아-요청 또는 개인적 이익의 기타 요소가 전혀 없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그가 어떠하리라고 이해하는 하느님께 경배할 뿐이다. 경배는 경배자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한 숭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아버지를 경배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아버지의 비길 데 없는 개인성을 인식함에 대한 자연적이고도 자발적인 반응으로서, 그리고 그의 사랑할 만한 본성과 찬미할만한 속성들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경배에 참여하게 된다.

5:3.4 (65.6) 자아-이익의 요소가 경배에 끼어드는 순간, 그 순간의 헌신은 경배에서 기도로 전환되고 그리고 더욱 적절하게 영원한 아들 또는 창조자 아들의 개인에게 틀림없이 지도된다. 그러나 실천적인 종교적 체험에

있어서는, 기도가 참된 경배의 일부분으로서 아버지
하느님에게 드러져서 안 될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5:3.5 (66.1) 너희가 너희 일상생활의 실천적 관련사들을 다룰
때, 너희는 셋째근원이며 중심에 기원을 갖는 영
개인성들의 통제 아래에 있다; 너희는 공동 행위자의
대리자들과 협동하고 있다. 그런즉 이런 것이다: 너희는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며; 아들에게 기도하고 그와
교제한다; 그리고 너희 세계에서 그리고 너희 우주에 두루
활동하는 무한한 영의 지능존재들과 관련하며, 너희의
땅에서의 체재에 관한 세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5:3.6 (66.2) 지역우주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창조자 또는 주권자
아들들은 파라다이스의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두
분의 자리에 있다. 이 우주 아들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경배의 찬미를 받아들이고 그들 각자의 창조계에 두루
탄원하는 그들 백성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인다.
지역우주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모든 실천적 의도와
목적들에 대해 미가엘 아들이 하느님이시다. 그는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지역우주 개인화구현이다.

무한한 영은 우주 영(靈)들,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들의 행정-관리적 그리고 창조적 연관-동료들을 통하여 이 영역에 속한 자녀들과 개인적 접촉을 유지한다.

5:3.7 (66.3) 진지한 경배는 진화하는 혼의 지배 아래에서 그리고 연관된 생각 조절자의 신성한 방향성구현을 전제로 하여, 인간 개인성의 모든 힘들이 동원됨을 의미한다. 물질적 한계를 갖는 마음은 참된 경배의 실제 의의(意義)를 결코 깊이 의식하게 될 수 없다. 사람의 경배 체험에서의 실체의 실현은 주로 그의 진화하는 불멸 혼의 발달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 혼의 영적 성장은 지적 자아의식과는 전적으로 독립하여 일어난다.

5:3.8 (66.4) 경배 체험은 합일을 약속하는 조절자가 인간 혼의—하느님을-찾는 필사자 마음과 하느님을-계시하는 불멸 조절자의 공동 창조의—형언할 수 없는 염원들과 말로 나타낼 수 없는 갈망들을 신성한 아버지와 교통하려는 숭고한 시도이다. 그러므로 경배는, 그의 영성화하는 자아가 연관된 영의 안내를 따라, 우주 아버지의 신앙 아들로써 하느님과 교통하려는 시도에 물질적 마음이 동의하는 행위이다. 필사자 마음은 경배에

동의하며; 불멸 혼은 경배를 갈망하고 일으키며; 신성한 조절자 현존은 필사자 마음과 진화하는 불멸 혼을 대신하여 그러한 경배를 행위로서 이끈다. 참된 경배는,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네 가지 조화우주 차원; 지적, 모론시아적, 영적, 그리고 개인적 차원들—마음, 혼 그리고 영의 인식 그리고 개인성 안에서의 그들의 통일—에서 실현되는 체험이 된다.

제 4 장. 종교에서의 하느님

5:4.1 (66.5) 진화하는 종교들의 도덕은 하느님 탐구에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원동력에 의해 사람들을 앞으로 몰아간다. 계시의 종교들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사랑의 하느님을 찾도록 사람들을 유도한다. 그러나 종교는 단순히 “절대적 의존”과 “생존의 보장”이라는 소극적인 느낌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성 봉사에 근거를 두는 신성 달성의 살아있고 역동적인 체험이다.

5:4.2 (66.6) 참된 종교의 크고 즉각적인 봉사는 인간 체험 속에서의 영속하는 합일, 영존하는 평화와 깊은 확신의 수립이다. 원시인에게 있어서는, 심지어 다신교(多神敎)

조차도 신(神)에 대한 진화적 개념의 상대적 통일이다; 다신교는 발달 중인 유일신교이다. 머지않아서, 하느님은 가치들의 실체, 의미들의 본체, 그리고 진리의 생명으로서 이해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5:4.3 (67.1) 하느님은 단지 운명의 결정자일 뿐만이 아니다; 그는 사람의 영원한 목적지이다. 인간의 모든 비종교적 활동들은 우주를 자아의 왜곡된 봉사에 맞추려고 모색한다; 참으로 종교적인 개별존재는 자아를 우주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합일된 이 자아의 행위들을, 인간이든지 초인간이든지, 동료 존재들의 우주 가족에 대한 봉사에 바치려고 모색한다.

5:4.4 (67.2) 철학과 예술의 권역들은 인간 자아의 비종교적 활동과 종교적 활동 사이에 있다. 예술과 철학을 통하여, 물질적-마음을-가진 사람은 영원한 의미의 영적 실체와 그리고 우주 가치에 대한 깊은 사색으로 유인된다.

5:4.5 (67.3) 모든 종교는 신(神)에 대한 경배와 인간 구원에 대한 교리를 가르친다. 불교는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끝남이 없는 평화를 약속한다; 유대교는 어려움들로부터의 구원, 정의(正義)에 근거를 둔 번영을 약속한다; 그리스 종교는

아름다움의 실현으로, 부조화, 추함으로부터의 구원을 약속한다; 그리스도교는 거룩함, 죄로부터의 구원을 약속한다; 회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가혹한 도덕적 기준들로부터의 해방을 제공한다. 예수의 종교는 시간 속에서의 그리고 영원 속에서의 창조체 고립안에 있는 악으로부터의 해방, 자아로부터의 구원이다.

5:4.6 (67.4)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종교를 선(善)에 기초하였다; 그리스인들은 아름다움에 기초하였다; 두 종교가 모두 진리를 추구하였다. 예수는 사랑의 하느님을 계시하였고, 사랑은 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다.

5:4.7 (67.5) 조로아스터 교도들은 도덕의 종교를 가졌으며; 힌두인 들은 형이상학의 종교를 가졌으며; 유교도 들은 윤리의 종교를 가졌다. 예수는 봉사의 종교를 실천하였다. 이 모든 종교들은 예수의 종교에 접근하기에 유효한 가치를 그 안에 갖고 있다. 종교는 인간 체험 속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진실한 그 모든 것의 영적 통일의 실체가 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5:4.8 (67.6) 그리스 종교는 "너 자신을 알라"는 표어를 가졌으며; 히브리인들은 "하느님을 알라"는 그들의 가르침에 중심을 두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지식"을 목표로 하는 복음을 전파하였다. 예수는 "하느님을 알고, 너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인 것을 알라"는 복된 소식을 선포하였다. 종교의 목적에서 서로 다른 이러한 개념들이 다양한 생활환경 속에서의 개별존재의 태도를 결정하며 그리고 그의 개인적 기도 습관의 본성과 경배의 깊이를 예시한다. 어떤 종교든지 그 영적 지위는 그 기도의 본질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5:4.9 (67.7) 반(半)인간이고 질투하는 하느님에 대한 개념은 다신교와 숭고한 유일신교 사이의 필연적 과도기이다. 드높여진 사람모습의-신(神)사상은 순수하게 진화 종교의 최고 달성 차원이다. 그리스도교는 사람모습의-신(神) 개념을, 인간의 관념으로부터,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라는 인물의 초월적이고 신성한 개념으로 높여놓았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모습의-신(神)사상이다.

5:4.10 (67.8) 하느님에 대한 그리스도교 개념은 분리된 세 가르침들을 병합하려는 시도이다:

5:4.11 (67.9) 1. 히브리 개념—도덕적 가치의 옹호자로서의 하느님, 정의로운 하느님.

5:4.12 (67.10) 2. 그리스 개념—통합자로서의 하느님, 지혜의 하느님.

5:4.13 (68.1) 3. 예수의 개념—살아 계시는 친구로서의 하느님, 사랑 넘치는 아버지, 신성한 현존.

5:4.14 (68.2) 그러므로 혼합된 그리스도교 신학이 일관성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에 부딪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 어려움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교리들이 일반적으로 ,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나사렛의 예수, 그리고 타르수스의 바울; 서로 다른 이 세 사람들 각자의 개인적 종교적 체험에 기초를 두었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악화되어있다.

5:4.15 (68.3) 예수의 종교적 삶을 연구할 때, 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그의 죄 없음 보다는 그의 정의(正義), 그의 사랑스러운 봉사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라. 예수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대해 히브리 개념 속에 계시된

수동적 사랑을, 모든 개별존재의, 심지어 그릇된 행동을 범한 자에게도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더 높은 활동적이고 창조체를-사랑하는 애정으로 올려놓았다.

제 5 장. 하느님에 대한 의식(意識)

5:5.1 (68.4) 도덕은 자아-의식의 이성에 그 기원이 있다; 그것은 초(超)동물적 이지만 전적으로 진화적이다. 인간 진화는 조절자들을 증여하기까지 그리고 진리의 영이 부어지기까지, 선행되는 모든 자질들을 그것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 포용한다. 그러나 도덕 차원의 달성은 사람을 필사 삶에서의 실제 투쟁으로부터 해방하지 않는다. 사람의 물리적 환경은 실존을 위한 싸움을 수반하며; 사회적 상황들은 윤리적 조절을 필요로 하며; 도덕적 상태는 최고의 이성 영역에서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며; 영적 체험은(하느님을 실현하고 있는)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진지하게 분투하기를 요구한다.

5:5.2 (68.5) 종교는 과학의 사실, 사회의 책무, 철학의 가정, 또는 도덕의 암시적 의무에 기초를 두지 않는다. 종교는 삶의 환경에 대한 인간 응답의 독립된 영역이고 그리고

도덕이후 인간 발전의 모든 단계들에서 어김없이 나타난다. 종교는 가치들을 실현하고 우주 동료관계를 즐기는 네 차원들; 자아-보존의 물리적 또는 물질적 차원; 동료관계의 사회적 또는 감정적 차원; 이성의 도덕적 또는 의무적 차원; 신성한 경배를 통한 우주 동료관계 의식의 영적 차원, 이 네 가지 모두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다.

5:5.3 (68.6) 사실을-추구하는 과학자는 하느님을 첫째 원인, 기세의 하느님이라고 생각한다. 감정적인 예술가는 하느님을 아름다움의 이상(理想), 미학(美學)의 하느님으로 이해한다. 추론하는 철학자는 때로 우주적 합일의 하느님으로 가정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심지어는 범신주의적 신(神)으로 가정한다. 신앙을 가진 종교가는 생존을 돌보는 하느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의 하느님을 믿는다.

5:5.4 (68.7) 도덕적 행위성은 진화종교와 계시종교의 일부분에 항상 선행되지만, 그러나 종교 체험 전체보다는 선행되지 않는다. 사회적 봉사는 도덕적 사고와 종교적 생활의 결과이다. 도덕은 생물학적으로 종교적 체험의 상급 영적차원으로 이끌지 않는다. 추상적인 아름다움의

찬미는 하느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며; 자연계를 드높여 받드는 것이나 합일을 존경하는 것도 또한 하느님에 대한 경배가 아니다.

5:5.5 (68.8) 진화적 종교는, 사람을 조절자 증여와 진리의 영의 오심을 포함하여, 계시 종교로 이르는 접수성의 차원까지 높여주는, 과학과 예술과 철학의 모체(母體)이다. 인간 실존에 대한 진화적 풍경은, 매우 다른 종교의 본질특성, 하나는 진화적이고 생물학적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적이고 주기적이긴 해도, 종교로 시작하고 종교로 끝난다. 그리하여, 종교는 사람에게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한편, 그것은 또한 선택적이기도 하다. 사람은 자신의 뜻에 반대하면서 종교적일 이유는 없다.

5:5.6 (69.1) 종교적 체험은, 본질적으로 영적이라서, 물질적 마음으로는 결코 충만하게 납득될 수 없다; 그러므로 신학, 종교에서의 심리학의 기능으로도 납득될 수 없다. 하느님에 대한 인간 실현의 본질적 교리는 유한한 이해에서는 하나의 역설을 창조한다. 인간 논리와 유한한 이성, 내주하는 하느님이며 각 개별존재의 일부분인 신성한 내재의 개념을, 우주들의 우주에 대한 신성한

지배인 하느님의 초월성 관념과 조화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 신(神)에 대한 본질적 개념은, 개인적 하느님에 대한 초월성 개념이 신앙-파악 안에서, 그리고 바로 그 하느님 단편이 지적 경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개인성 생존의 소망을 실증하려고 내주하며 현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실현 안에서, 합일되어야만 한다. 종교에서의 실체들이 지적 이해에서의 필사자 수용능력을 철저히 벗어난다는 사실 속에서, 종교의 난제들과 역설들은 선천적이다.

5:5.7 (69.2) 필사 사람은 그의 땅에서의 일시 머무르는 세월 동안에도, 종교적 체험에서 세 가지 큰 만족감을 획득한다:

5:5.8 (69.3) 1. 지적으로 그는 더욱 합일된 인간 의식의 만족감을 얻는다.

5:5.9 (69.4) 2. 철학적으로 그는 도덕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이상(理想)의 실체화를 즐긴다.

5:5.10 (69.5) 3. 영적으로 그는 참된 경배의 영적 만족 안에서, 신성한 동행자신분에 대한 체험 안에서 자라난다.

5:5.11 (69.6) 하느님-의식은, 그것이 영역의 진화하는 필사자에 의해 체험되듯이, 변화하는 세 요소들, 실체 실현의 서로 다른 세 차원들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로는 마음 의식—하느님 관념에 대한 이해—이 있다. 다음에는 혼 의식—하느님의 이상(理想)에 대한 실현—이 따라온다. 마지막으로, 영 의식—하느님의 영 실체에 대한 실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신성한 실현의 이 요소들의 통일에 의하여, 아무리 불완전 하더라도, 필사 개인성은, 하느님의 개인성에 대한 실현과 함께 모든 의식 차원들에 항상 널리 퍼진다. 최종의 무리단에 도달한 그 필사자들에게, 이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최극위 하느님에 대한 실현으로 이끌 것이고, 그 다음에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아(亞)절대 초(超)의식의 어떤 위상인 궁극위 하느님 실현으로 결국 생겨날 것이다.

5:5.12 (69.7) 하느님-의식 체험은 대대로 변함없이 같지만, 인간 지식에서 진보하는 각 신(新)시대마다 하느님에 대한 철학적 개념과 신학적 정의(定意)는 반드시 변한다. 종교의식인 하느님을-아는 것은 우주적 실체이다. 그러나 종교적 체험이 얼마나 효력이 있든지 (실제) 간에, 그것은 지능적 비평과 그리고 합당한 철학적 해석에 기꺼이

자신을 종속화 시켜야한다; 인간 체험의 전체성 속에서 동떨어진 어떤 것이 되도록 추구해서는 안 된다.

5:5.13 (69.8) 개인성의 영원한 생존은, 그의 결정이 불멸 혼의 생존 잠재를 정하는, 필사자 마음의 선택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마음이 하느님을 믿고 혼이 하느님을 알 때, 그리고 돌보는 조절자와 함께 그들 모두가 하느님을 원할 때, 생존이 보증된다. 지능의 한계, 교육의 부족, 문화의 박탈, 사회 지위의 열악, 그리고 심지어는 교육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이점이 불행하게 부족 됨으로 유래되는 도덕의 인간 기준의 열등함조차도, 그렇게 불행하고 인간으로의 장애가 있어도 믿음을 가진 개별존재 속에 있는 신성한 영의 현존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 신비 감시자의 내주가 불멸 혼의 성장 그리고 생존의 잠재의 시초를 이루고, 가능성을 보장한다.

5:5.14 (70.1) 출산에 대한 필사 부모의 능력은 그들의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위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자연적 환경 아래에서 어버이의 요소 연합은 자손을 낳기에 매우 충분하다. 인간 마음이 옳고 그릇됨을 식별하고 신성한 조절자와의 연합으로, 하느님을

경배하는 수용능력을 소유하는 것은, 만일 영(靈)-부여받은 개별존재가 하느님을 추구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진지하게 갈망한다면, 만일 정직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필사자의 생존하는 본질특성인 불멸 혼의 생산을 시작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다.

제 6 장. 개인성의 하느님

5:6.1 (70.2) 우주 아버지는 개인성들의 하느님이다. 개인성 지위의 가장 낮은 필사자 그리고 물질적 창조체로부터 창조자 존엄이며 그리고 신성한 지위에 있는 가장 높은 개인에 이르기까지, 우주 개인성의 권역은 그 중심과 테두리를 우주 아버지 안에 둔다. 아버지 하느님은 모든 개인성의 증여자인 동시에 보존자이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마찬가지로 신성한 뜻을 행하기로 전심으로 선택한 모든 유한 개인성들,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의, 그 운명이다.

5:6.2 (70.3) 개인성은 우주의 풀리지 않은 신비들 중 하나이다. 우리는 개인성의 다양한 계층과 차원을 꾸미는데 들어가는 요소들의 적당한 개념들을 형성할 수는 있지만,

개인성 자체의 실제 본성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함께 모아져 있을 때, 인간개인성을 위한 매체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뚜렷이 감지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유한(有限) 개인성의 본성과 의의(意義)를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5:6.3 (70.4) 개인성은 자아-의식인 최소로부터 하느님-의식인 최대에 걸쳐서 마음자질을 소유하는 모든 창조체들 안에서 잠재적이다. 그러나 마음자질 자체만으로는 개인성이 아니며, 또한 영도 아니고 물리적 에너지도 아니다. 개인성은 물질, 마음, 그리고 영의 연관되고 조화-협동된 에너지의 이 살아있는 체계 위에 아버지 하느님에 의해 배타적으로 증여되는, 조화우주 실체에 있는 그 본질특성과 그리고 가치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성은 점진적으로 성취하는 것도 아니다. 개인성은 물질적 또는 영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어느 쪽도 개인성이 있든지 또는 개인성이 없든지 둘 중 하나이다. 개인적이-아닌-것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직접 활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자의 차원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5:6.4 (70.5) 개인성의 증여는 우주 아버지의 배타적기능, 우주 아버지가 살아있는 에너지 체계에 대하여 상대적인 창조 의식의 속성과 그리고 그곳에 대한 자유의지 통제를 자질로서 부여하는, 그 살아있는 에너지 체계의 개인성구현이다. 아버지 하느님과 분리된 개인성이 없으며, 어떤 개인성도 아버지 하느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인간 개인성의 중심 핵(核), 절대 조절자와 마찬가지로, 인간 자아신분의 토대가 되는 속성들은, 우주 아버지, 조화우주 사명활동으로서 그의 배타적 개인적 권역 안에서 활동하는 이의 증여이다.

5:6.5 (70.6) 전(前)개인적 지위의 조절자들은 필사 창조체들의 수많은 유형들 속에 내주하며, 동일한 이 존재들이, 필사 죽음을 생존시켜, 궁극적 영 달성의 잠재를 가지는 모론시아 창조체로 개인성구현하는 것을 그렇게 보증한다. 이는, 개인성 자질의 그러한 창조체 마음이, 개인성이신 아버지의 전(前)개인적 증여, 영원 하느님의 영 단편으로 내주되면 이, 유한 개인성은, 신성의 그리고 영원의 잠재를 소유하고 그리고 궁극자와 동족(同族)의 운명을 열망하며, 잇달아 절대자의 실현을 향해 뻗어나가기 때문이다.

5:6.6 (71.1) 신성한 개인성에 관한 수용능력은 전(前)개인적 조절자 안에 선천적으로 있다; 인간 개인성에 관한 수용능력은, 인간 존재의 조화우주-마음 자질 속에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필사 사람의 체험적 개인성은, 필사 창조체의 물질적 생명 매체가 우주 아버지의 해방시키는 신성의 손길을 받고, 그래서 자아-의식적이고, (상대적으로) 자아-결정적이고, 그리고 자아-창조적인 개인성으로 체험의 바다 위에 항해에 나서게 되기까지는,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실체로서 목격되지 않는다. 물질적 자아는 진정으로 그리고 분별불가하게 개인적이다.

5:6.7 (71.2) 물질적 자아는 개인성과 정체성, 일시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전(前)개인적 영 조절자 역시 정체성, 영원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 물질적 개인성과 이, 영 전(前)개인성은, 불멸 혼이라는 생존되는 정체성 실존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의 창조 속성들을 그렇게 결합시킬 수 있다.

5:6.8 (71.3) 그렇게 불멸 혼의 성장을 위해 준비해 왔고 그리고 선행(先行) 원인성에 절대 의존하는 족쇄로부터 사람의 내부 자아를 해방시켜 왔기에, 아버지는 옆으로 비켜

계신다. 사람이, 적어도 영원한 운명에 관계해서는, 원인성
응답의 족쇄로부터 그렇게 해방되어 왔고, 그리고 불멸
자아, 혼의 성장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 왔으며, 선택하는
대로 자기 것이 되는 이 생존되고 그리고 영원한 자아의
창조를 원할 것인지 아니면 금할 것인지는, 이제 사람
자신에게 남아 있다. 넓은 우주들의 우주 전체에서 어떤
존재, 기세, 창조자, 혹은 대리자라도, 선택하고 있는
필사자 개인성의 영원한 운명에 관하여, 선택의 영역
안에서 그것이 작용하는 한, 필사 자유의지의 절대적
주권에 조금도 간섭할 수 없다. 영원한 생존과 관계해서는,
하느님은 물질적이고 필사자 의지에 주권이 있음을
선포해 왔으며, 그 선포는 절대적이다.

5:6.9 (71.4) 창조체 개인성의 증여는 선행되는 원인성에 대한
노예적 반응으로부터 상대적 해방을 수여하며, 그러한
모든 도덕적 존재들의 개인성은, 진화적이든지 아니든지,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 속에 집중되어진다. 그들은
광대하고 우주적인 가족 계(界) 그리고 영원한 하느님의
형제우애의 순환회로를 이루는, 그 존재의 동족관계에
의해 그의 파라다이스 현존을 향하여 계속 끌어 당겨진다.
모든 개인성 속에는 신성한 자발성인 친족관계가 있다.

5:6.10 (71.5) 우주들의 우주의 개인성 순환회로는 우주 아버지의 개인 안에 집중되고 있으며,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자아의식 실존의 모든 차원의 모든 개인성들을 개인적으로 의식하고, 개인성으로 접촉한다. 그리고 전체 창조체의 이 개인성 의식은 생각 조절자들의 임무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5:6.11 (71.6) 모든 중력이 파라다이스 섬 안에서 순환회로화 되어있는 것처럼, 모든 마음은 공동 행위자 안에 순환회로화 되어있고, 모든 영이 영원한 아들 안에 순환회로화 되어있는 것처럼, 모든 개인성은 우주 아버지의 개인적 현존 안에 순환회로화 되어있으며, 이 순환회로는 모든 개인성들의 경배를, 기원적이고도 영원한 개인성에게 어김없이 전한다.

5:6.12 (71.7) 조절자가 내주하지 않는 그 개인성들의 경우에는: 선택-해방의 속성이 우주 아버지에 의해 역시 증여되어 있고, 그러한 개인들은 신성한 사랑의 위대한 순환회로,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 순환회로, 속에 마찬가지로 포용되어 있다. 하느님은 모든 참된 개인성들의 주권적 선택을 제공하신다. 어떤 개인성 창조체도 영원한

모험여행 속으로 강요될 수 없다; 영원의 문은 자유의지
하느님의 자유의지 아들의 자유의지 선택에만 응답해서
열린다.

5:6.13 (72.1) 지금까지 나는 시간의 자녀들에 대한 살아 계시는
하느님의 관계를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하고 마치면서, 나는 하느님이 너희의 우주의
아버지이심을, 그리고 너희는 모두 그의 행성 자녀들임을
반복해 말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도움이 될 아무 것도
없다.

5:6.14 (72.2) [이것은 유버사의 신성한 조언자에 의한 우주
아버지에 대한 일련의 이야기들 중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이다.]

제 6 편 영원한 아들

6:0.1 (73.1) 영원한 아들은 우주 아버지의 “첫 번째” 개인적이지
절대 개념에 대한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때마다 그리고 방법마다, 그는 언제나 그러하였고, 지금도
그러하고, 또 언제나 그러할 살아 계신 이이며 그리고
신성한 말씀인, 그의 영원한 아들을 통하여 행하신다.

그리고 이 영원한 아들은, 개인적 현존을 즉각적으로 감싸는, 영원한 우주 아버지와 관계적-연합하면서, 만물의 중심에 거(居)한다.

6:0.2 (73.2) 우리들은 인간지능의 생각 통로로 가는 접근경로를 얻기 위하여 하느님의 “첫 번째”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영원한 아들의 불가능한 시간 기원에 대하여 언급한다. 이러한 언어의 왜곡은 시간에-매인 필사 창조체들의 마음과 접촉-절충하려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나타낸다. 순차적 감각에서, 우주 아버지에게 결코 첫 번째 생각이 있었을 수도 없고, 또한 영원한 아들에게 결코 시작됨이 있었을 수도 없다. 그러나 나는 필사자들의 시간에-제한된 마음에게 그러한 사고의 상징들로서 영원의 실체들을 묘사하고 그리고 그러한 순차성의 시간 개념으로 영원의 관계성을 나타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6:0.3 (73.3) 영원한 아들은, 신성한 실체, 분별불가한 영, 그리고 절대 개인성에 대한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우주적이고 무한한 개념의 영적(靈的) 개인성구현이다. 그리고 이로서, 아들은 우주 아버지의 창조자 정체성에 대한 신성한 계시를 조성한다. 아들의 완전 개인성은, 아버지가

실재로 영적이고, 의지적이며, 목적이 있으며, 그리고 개인적인 모든 의미와 가치의 영원하고 우주적인 근원임을 드러낸다.

6:0.4 (73.4) 시간의 유한한 마음들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들의 관계에 대하여 다소 순차적 개념을 형성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첫째 개인적, 우주적, 그리고 무한한 개념"으로 참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락된 개념을 사용한다. 신(神)들의 영원한 관계에 대한 어떤 적절한 관념도 인간 마음에게 전달하는 일은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용어들을 씀으로서 그렇게 뒤이어 오는 시대에서 이러한 영원한 존재들의 관계에 대한 어느 관념의 얼마큼을 유한 마음에게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솟았다고 믿는다; 우리는 두 분 모두 분별불가적으로 영원하다고 배웠다. 그러므로 어떤 시간 창조체도, 아버지로부터 유래되었고, 그럼에도 여전히 아버지 자신과 조화-협동적으로 영원한, 한 아들의 이 신비를, 영원토록 충만하게 이해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제 1 장. 영원한 아들의 정체성

6:1.1 (73.5) 영원한 아들은 하느님의 기원적이고도 오직하나 낳은 아들이다. 그는 아들 하느님이시고, 신(神)의 둘째 개인이시며, 만물의 연관 창조자이시다. 아버지가 첫째 위대한 근원이며 중심인 것처럼, 영원한 아들은 둘째 위대한 근원이며 중심이다.

6:1.2 (74.1) 영원한 아들은 우주들의 우주의 영적 정부의 신성한 관리행정자이며 영적 중심이다. 우주 아버지는 첫째로 창조자이시고, 그 다음으로는 통제자이시다; 영원한 아들은 첫째로 공동 창조자이시고, 그 다음으로는 영적 관리행정자이시다. “하느님은 영이시며,” 아들은 영의 개인적 계시이다.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의지적 절대자이다; 둘째근원이며 중심은 개인성 절대자이다.

6:1.3 (74.2) 우주 아버지는, 아들과 또는 아들의 조화-협동 활동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창조자로서 몸소 기능하지 않는다. 신약성경의 저자가 다음과 같이 썼던 것이 영원한 아들에 관하여 참조했었던 것이라면, 그는 진리를 말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

말씀은 곧 하느님이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그가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6:1.4 (74.3) 영원한 아들의 한 아들이 유란시아에 나타났을 때,
인간 형태로 있는 이 신성한 존재와 형제우애를 가졌던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바 있고,
우리들의 눈으로 본바 있으며, 우리들이 바라본바 있고,
그리고 심지어 생명의 말씀까지도 우리의 손으로 만져
본바 있던, 처음부터 계신 그 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기원아들이 진실로 그러하였던 것과 똑같이, 이 증여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왔으니 그의 땅에서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내 비추어졌다: “그리고 이제, 오,
아버지시여,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당신과 함께 했던
영광과, 당신의 자신으로 저를 영광되게 하소서.”

6:1.5 (74.4) 영원한 아들은 여러 다른 우주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우주에서는 조화-협동 근원,
공동 창조자, 그리고 연관-동료 절대자로 알려져 있다.
초우주 본부인 유버사에서 우리는 아들을 조화-협동 영
중심 그리고 영원한 영 관리행정자라고 나타낸다. 너희
지역우주의 본부인 구원자별에서는 이, 아들이 둘째

영원근원이며 중심이라고 기록되어있다. 멜기세덱들은, 그를 아들 중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창조체가 거주하는 구체들로 이루어진 너희 체계에서는 아니지만, 너희 세계에서는 이 기원 아들이, 유란시아의 필사 종족에게 스스로를 증여한 네바돈의 미가엘, 조화-협동 창조자 아들과 혼동되어 왔다.

6:1.6 (74.5) 파라다이스 아들 중 누구든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적절하게 불릴 수 있겠지만, 둘째근원이며 중심이고, 우주 아버지와 함께 완전성과 힘의 중앙우주의 공동 창조자이면서 그리고 무한 신(神)들로부터 솟아난 모든 다른 신성한 아들의 공동 창조자인, 이 기원 아들을 지칭하기 위하여 “영원한 아들”라는 명칭을 항상 예비해 두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

제 2 장. 영원한 아들의 본성

6:2.1 (74.6) 영원한 아들은 우주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으시고 무한히 믿을 수 있다. 그는 바로 아버지와 똑 같이 영적이며, 정말로 똑같이 무제한적 영이다. 낮은 기원인 너희에게는, 그가 우주 아버지보다 한발자국 더 너희에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아들이 좀 더 개인적으로 나타나 보일 것이다.

6:2.2 (74.7) 영원한 아들은 영원한 하느님 말씀이시다. 그는 온통 하느님과 같으시며; 사실, 영원한 아들은 우주들의 우주에 개인적으로 현시하신 아버지 하느님이시다. 그러므로 영원한 아들과 그리고 모든 조화-협동 창조자 아들에 대한 이 말은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진실이다;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6:2.3 (74.8) 본성에 있어서 아들은 온통 영 아버지와 같다. 우리가 우주 아버지를 경배할 때, 실재적으로 우리는 아들 하느님과 영 하느님을 동시에 경배한다. 아들 하느님은 아버지 하느님처럼 그렇게 본성에 있어서 신성하게 실제^{real}하며 그리고 영원하다.

6:2.4 (75.1)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무한하고 초월적인 정의(正義)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아들은 또한 아버지의 모든 성격의 성스러움까지도 반영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완전성을 함께 나누며, 신성한 완전성에 도달하려는

저들의 영적 노력에 있는 모든 불완전성의 창조체들을 도와주는 책임도 함께 나눈다.

6:2.5 (75.2)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신성의 성격과 영성(靈性)의 속성을 소유한다. 아들은 개인성과 영에서 하느님의 절대성의 충만함이며, 그리고 이 아들은 이러한 본질특성을 우주들의 우주의 영적 정부에 대한 그의 개인적 경영에서 드러낸다.

6:2.6 (75.3) 하느님은, 참으로, 우주적 영이시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 영 본성은 영원한 아들의 신(神) 안에 초점화구현되고 개인성구현되어 있다. 아들 안에서, 모든 영적 특징들이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우주보편성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분명하게 크게 증진되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의 영 본성을 아들과 함께 나누듯, 그들은 무한한 영, 공동 행위자와 더불어, 신성한 영을 마찬가지로 충분하고 남김없이 함께 나눈다.

6:2.7 (75.4) 아들이 우주적 가치를 가진 전적으로 영적 아름다움(美)의 실현에 자신을 더욱 헌신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버지와 아들은 진리의 사랑에서 그리고 미의 창조에서 동일하다.

6:2.8 (75.5) 신성한 선(善)에 있어서, 나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아무런 차이점을 식별하지 못한다. 아버지는 그의 우주 자녀들을 아버지로서 사랑하시며, 영원한 아들은 모든 창조체들을 아버지로서 그리고 또 형제로서 바라본다.

제 3 장. 아버지의 사랑에서의 사명활동

6:3.1 (75.6) 아들은 삼위일체의 공의(公義)와 정의(正義)를 나누어 가지지만, 그러나 이들 신성 특색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의 무한한 개인성구현에 의해 빛이 가려지고 있다; 아들은 우주에게 신성한 사랑을 계시한 것이다. 하느님이 사랑인 것처럼, 아들은 자비이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는 한 가지 추가적 방법으로 창조체들에게 자비를 보여 줄 수 있는데, 이는, 그가 아버지처럼 시원적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같은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기에, 우주 아버지의 다른 모든 아들들의 아들관계 체험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6:3.2 (75.7) 영원한 아들은 모든 창조체에게 위대한 자비의 사명활동자이시다. 자비는 아들의 영 성격의 본질이다.

영원한 아들의 통치는, 그것들이 둘째 근원이며 중심의 영순환회로들을 건너 나아갈 때, 자비의 격조로 맞추어진다.

6:3.3 (75.8) 영원한 아들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의 신성한 근원, 사랑이신 아버지를 너희가 먼저 알아차려야 하며, 그 다음에는, 무한한 영(靈)과 그리고 그의 거의 한없는 사명활동하는 개인성 무리단의, 멀리-퍼지는 사명활동에서 이 무한한 애정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한다.

6:3.4 (75.9) 영원한 아들의 사명활동은 우주들의 우주에게 사랑의 하느님을 계시하는 데에 바쳐진다. 이 신성한 아들은 그의 인자한 아버지가 미친한 창조체들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시간의 그릇된 행동을 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설득하려 애쓰는 미친한 과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다. 우주 아버지에게 공간의 물질세계에 있는 그의 낮은 창조체들을 위하여 자비를 보여주시도록 간청하는 모습으로 영원한 아들을 그려보는 것은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 하느님에 대한 그러한 개념은 원시적이고도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하느님의 아들들의 모든 자비로운 직무가, 우주의 사랑과

무한한 연민을 가진 아버지의 진심을 직접 계시한 것이라는 사실을 실현해야만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이 가진 자비의 실제이자 영원한 근원이다.

6:3.5 (75.10)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아들은 자비이시다. 자비는 적용된 사랑, 그의 영원한 아들의 개인 안에서 행하여지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 우주 아들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우주적이다. 사랑이 성(性)의 구별이 있는 행성에서 이해되는 경우, 하느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에 좀 더 견주어 볼 만하고 반면, 영원한 아들의 사랑은 어머니의 애정에 좀 더 비슷하다. 이러한 설명은 정말로 미숙하기 그지없지만, 나는 그것들을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 사이에, 그 신성한 내용이 아닌 본질특성과 표현의 기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인간 마음에게 전했으면 하는 희망에서 사용한다.

제 4 장. 영원한 아들의 속성

6:4.1 (76.1) 영원한 아들은 조화우주 실체의 영 차원 동기가 된다; 아들의 영적 힘은 모든 우주 실재성에 대한 관계에서 절대적이다. 그는 영 중력(重力)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파악을 통하여 실재화된 모든 영 실체에 대해 그리고

차별화되지 않은 모든 영 에너지의 상호-연관에 대해 완전한 통제를 행사한다. 순수하고 단편화되지 않은 모든 영과 모든 영적존재와 가치는 시원적 파라다이스 아들의 무한한 끌어내는 힘에 응답을 보인다. 그리고 만일 영원한 미래가 무제한적 우주의 출현을 목격하는 경우, 기원 아들의 영 중력과 영의 힘은, 그러한 한없는 창조에 대한 영적 통제와 효력적인 관리-행정에 온통 적합하다는 것이 발견될 것이다.

6:4.2 (76.2) 아들은 영적 영역 안에서만 전능(全能)하다. 우주 관리-행정의 영원한 섭리에서, 기능에서의 낭비적이고 필요없는 반복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신(神)들은 우주 사명활동에서의 쓸모없는 복제에 빠지지 않는다.

6:4.3 (76.3) 기원 아들의 전재(全在)는 우주들의 우주의 영적 합일을 구성한다. 모든 창조의 영적 응집은 도처에 있는 영원한 아들의 신성한 영의 활발한 현존에 달려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적 현존을 그릴 때, 우리의 사고(思考) 속에서 그것을 영원한 아들의 영적 현존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 아버지의 영은 아들의 영 안에 영원히 거(居)한다.

6:4.4 (76.4)

아버지는 영적으로 전재(全在)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러한 전재(全在)는 영원한 아들의 모든 곳에서의 영 활동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우리는 이원적(二元的)인 영적 본성을 갖는 아버지-아들 현존의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아들의 영이 아버지의 영과 조화-협동한다고 믿는다.

6:4.5 (76.5)

개인성과의 접촉에 있어서, 아버지는 개인성 순환회로 안에서 행하신다. 그의 영적 창조와의 개인적이면서도 탐지 가능한 접촉에 있어서, 그는 자신의 신(神)의 전체성의 단편들 속에서 나타나며, 아버지의 이 단편들은 그들이 우주들 안에서 언제 어느 곳에 나타나든지 단독의, 독특한, 그리고 배타적인 기능을 갖는다. 그러한 모든 경우에도 아들의 영은 우주 아버지의 단편화된 현존의 영적 기능과 조화-협동한다.

6:4.6 (76.6)

영원한 아들은 영적으로 전재(全在)하신다. 영원한 아들의 영은 가장 분명하게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둘레에 계시지만, 그러나 신비 감시자처럼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의 일부로서 있는 것은 아니다. 내주하는 아버지의 단편은 인간 마음을 점진적으로 신성한 태도에

맞추어 조절하는데, 그리하여 그렇게 상승하는 마음은
둘째근원이며 중심의 만능의 영-중력 순환회로의
영적으로 끌어내는 힘에 점점 더 응답하게 된다.

6:4.7 (76.7) 기원 아들은 우주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자아-
의식을 가진다. 지혜에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와 총만하게
동일하시다. 지식의 영역, 전지(全知)함에 있어서, 우리는
첫째근원과 둘째 근원을 구별할 수가 없다; 아버지처럼
아들도 모든 것을 아신다; 아들은 어떠한 우주 사건에도
결코 놀라지 않는다; 그는 시작에서 끝을 이해한다.

6:4.8 (77.1) 아버지와 아들은 우주들의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영들과 영성화된 존재들의 숫자와 소재(所在)를 실제로 다
아신다. 아들은 자신의 전재(全在)하는 영으로 만물을
아실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리고 공동 행위자와 동등하게,
최극존재의 방대한 반영성 지능을 총만하게
인지하시는데, 그 지능은 일곱 초우주에 속한 모든
세계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언제나 아신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아들이 전지(全知)하신 또 다른 방법도 있다.

6:4.9 (77.2) 사랑이시고, 자비롭고 돌보시는 영적
개인성으로서의 영원한 아들은, 온통 그리고 무한하게

우주 아버지와 동일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낮은 영역의 상승하는 존재들과의 그, 모든 자비롭고 애정 어린 개인적 접촉에 있어서, 영원한 아들은 진화하는 시간 세계에 그렇게도 자주 자신들을 수여하는 지역우주들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시고 자상하시며, 그렇게 인내하시고 참을성이 있으시다.

6:4.10 (77.3) 영원한 아들의 속성에 관하여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 언급했던 예외들과 함께, 아들 하느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납득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느님의 영적 속성을 연구하는 것만이 오직 필요하다.

제 5 장. 영원한 아들의 한계

6:5.1 (77.4) 영원한 아들은 물리적 권역에서 개인적으로 기능할 수 없으며, 공동 행위자를 통하지 않고는, 창조체에게 마음 사명활동의 차원에서 기능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분별된-자격들은, 영적인 전지, 전재, 그리고 전능이라는 모든 신성한 속성을 충만하게 자유롭게 행사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원한 아들을 달리 제한하지는 않는다.

6:5.2 (77.5)

영원한 아들은 신(神) 절대자의 무한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있는 영 잠재를 개인적으로 널리 퍼뜨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들 잠재적인 것들이 실재적이 되면서, 그것들은 아들의 영-중력 순환회로의 만능의 장악 안에 들어온다.

6:5.3 (77.6)

개인성은 우주 아버지의 배타적 선물이다. 영원한 아들은 개인성이 아버지로부터 얻은 것임을 알고, 아들은 오직 아버지 없이 개인성을 증여하지 않는다. 아들은 광대한 영 무리를 기원시키지만, 그러한 파생체들은 개인성들이 아니다. 아들이 개인성을 창조할 때에는, 아버지와 함께 하든지 혹은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를 대신할 수도 있는, 공동 창조자와 함께 한다. 그와 같이 영원한 아들은 개인성들의 공동 창조자이지만, 그는 어떤 존재에게도 개인성을 증여하지 않으며, 그리고 혼자서는 결코 개인적 존재를 창조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위에 대한 이런 제한은, 개인적이-아닌-어떤 실체의 일부 또는 모든 유형들을 창조하는 능력을 아들에게서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6:5.4 (77.7) 영원한 아들은 창조자 특권의 전달에서 제한되어 있다. 아버지는, 기원 아들을 영원하게 하면서, 창조하는 속성을 소유하는 추가되는 아들들을 낳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신성한 행위에,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힘과 특권을 그에게 증여하였고,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행해 왔고, 지금도 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화-협동 아들들이 생산되고 나면, 창조자관계의 특권은 더 이상 전달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영원한 아들은 창조자관계 힘을 오직 최초에게만, 또는 직접적 개인성구현에만 전달한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창조자 아들을 개인성구현하려고 연합할 때는,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한다; 그러나 이렇게 실존으로 출현된 창조자 아들은, 비록 가장 높은 지역우주 아들 에서, 창조자 아들의 창조적인 속성의 매우 제한된 반영이 출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이후 창조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의 아들에게 창조자관계의 특권을 결코 전달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6:5.5 (78.1) 영원한 아들은, 무한하고 배타적으로 개인적인 존재로서, 우주 아버지나 그리고 무한한 영이 하는 것과는 달리, 자신의 본성을 단편화 시킬 수 없으며, 그의

자아신분의 개별존재화된 부분을 다른 실존개체나 개인성에게 분배할 수도 없고 증여할 수도 없다. 그러나 아들은 모든 창조체를 적시어 씻기도록, 무제한적 영으로서 자신을 증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며 모든 영 개인성과 영적 실체를 자신에게로 끊임없이 끌어들인다.

6:5.6 (78.2) 영원한 아들이 모든 창조체에게 영 아버지의 개인적 묘사임을 늘 기억하라. 아들은 개인적이고 신(神) 감각에서 오직 개인적 일뿐이다; 그러한 신성하고 절대적인 개인성은 집대성이-해체될 수도 없고 단편화될 수도 없다. 아버지 하느님과 영 하느님은 참으로 개인적이시지만, 그들은 그러한 신(神) 개인성 존재 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이기도 하다.

6:5.7 (78.3) 비록 영원한 아들이 생각 조절자 증여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는 영원한 과거에 아버지가 생각 조절자 증여를 구체적으로 투사하면서 아들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필사 사람을 만들자"라고 제안하셨을 때, 그 계획을 승인하고 끝없는 협동을 서약하면서, 우주 아버지와 의 협의에 참가하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 단편이 너희 속에 거(居)하는 것과 같이,
아들의 영 현존이 너희를 감싸며, 동시에 이 둘은 너희의
영적 전진을 위하여 언제까지나 하나로서 일하신다.

제 6 장. 영 마음

6:6.1 (78.4) 영원한 아들은 영이시고 마음을 가졌지만, 필사자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나 영은 아니다. 필사 사람은
마음을 유한의, 조화우주의, 물질적인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알아차린다. 또한 사람은 하위-개인적(동물적)
차원에서 기능하는 살아있는 유기체 안의 마음 현상도
지켜보지만, 그러나 초물질적 존재와 그리고 배타적 영
개인성의 한 부분으로서 연관될 때, 마음의 본성을
파악하는 일은 그에게 어려운 것이다. 아무튼, 마음은
그것이 실존의 영 차원을 언급할 때와, 그리고 그것이
지능존재의 영 기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될 때는,
다르게 정의(定意)되어야만 한다. 영과 직접적으로 결연을
맺은 그러한 종류의 마음은, 영과 물질을 조화-협동시키는
마음이나 혹은 오직 물질과 결연을 맺은 마음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6:6.2 (78.5) 영은 정체성의 다양한 위상들을 항상 의식하고, 유념하고, 그리고 그에 열중되어 있다. 어떤 위상에서 마음이 없다면, 영 존재들의 형제우애관계에는 아무런 영적 의식이 없을 것이다. 마음에 상당하는 것, 알고 그리고 알려지는 능력은 신(神)에게 토착적인 것이다. 신(神)은 개인적, 전(前)개인적, 초(超)개인적, 또는 미(未)개인적일 수도 있으나, 신(神)에게 결코 마음이 없을 수 없으니, 다시 말하자면, 비슷한 실존개체들, 존재들, 혹은 개인성들과 최소한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6:6.3 (78.6) 영원한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그것과 같지만, 그러나 우주에 있는 어느 다른 마음과도 같지 않으며,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그것은 공동 창조자의 다양하고 멀리-퍼지는 마음들의 조상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절대적 마음의 원조(元祖)인 지성은, 아마도 생각 조절자의 전(前)마음 속에서 가장 잘 설명되는데, 이는, 아버지의 이 단편들이 전적으로 공동 행위자의 마음 순환회로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前)마음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알려진 그대로 알고 있고; 그들은 인간의 사고와 동등한 것을 누린다.

6:6.4 (78.7) 영원한 아들은 온전히 영적(靈的) 이시며; 사람은 거의 온통 물질적이다; 따라서 영원한 아들의 영 개인성, 파라다이스를 에워 도는 그의 일곱 개의 영적 구체들, 그리고 파라다이스 아들의 미(未)개인적 창조계 본성에 관한 많은 것들은, 너희가 네바돈 지역우주에서 모론시아 상승을 완성을 마치고 나서 너의 영 지위 달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초우주를 지나 하보나에 이르면서, 너희가“영의 마음”—영적 통찰력—자질로서 부여받음에 따라, 영-숨겨진 비밀들 대부분이 분명해질 것이다.

제 7 장. 영원한 아들의 개인성

6:7.1 (79.1) 영원한 아들은, 우주 아버지를 속박한 바로 그 분별불가 개인성으로부터 삼위일체화구현의 기법에 의해 탈출한, 그 무한한 개인성이며, 그 덕분으로 그는 그 후로 늘 계속 창조자들과 창조체들의 늘-팽창하는 그의 우주 위에 끝없는 풍부함으로 자신을 증여해 왔다. 아들은 절대 개인성이시다; 하느님은 아버지 개인성—개인성의 근원,

개인성의 증여자, 개인성의 원인—이시다. 모든 개인적 존재는, 기원 아들이 파라다이스 아버지로부터 그의 개인성을 영원히 얻은 것과 같이, 우주 아버지로부터 개인성을 얻는다.

6:7.2 (79.2) 파라다이스 아들의 개인성은 절대이고, 순수하게 영적이며, 이 절대 개인성은 또한, 우선은, 공동 행위자에 대한 아버지의 개인성 증여의, 다음으로는, 멀리-퍼지는 우주에 두루 그의 수많은 창조체에 대한 개인성 증여의, 신성하고 영원한 원형틀이다.

6:7.3 (79.3) 영원한 아들은 진실로 자비로운 사명활동자이시고, 신성한 영이시며, 영적 힘이시고, 실제 개인성이시다. 아들은 우주에 현시된 하느님이 만드신 영적이고 개인적인 본성—비(非)개인적이고, 가외(加外)신성이며, 비(非)영적이고, 그리고 순수한 잠재적인 모든 것을 벗겨낸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전체이자 본체—이다. 그러나 영원한 아들의 숭고한 개인성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말로써 인간 마음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주 아버지를 가려서 희미하게 이끄는 모든 것이, 거의 똑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영원한 아들에 대한

개념적 인식을 막는다. 너희는 너희의 파라다이스 달성을 기다려야만 하며,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왜 유한한 마음이 납득하도록 이 절대 개인성의 성격을 묘사할 수 없었는지, 납득하게 될 것이다.

제 8 장. 영원한 아들의 실현

6:8.1 (79.4) 개인성의 정체성과 본성 그리고 기타 속성들을 살펴보면, 영원한 아들은 충만한 동등이고 완전한 보완이며 그리고 우주 아버지의 영원한 짝이시다. 하느님이 우주 아버지라는 것과 같은 감각에서, 아들은 우주 어머니이시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신분이 높은 낮은 그들의 우주 가족을 이루고 있다.

6:8.2 (79.5) 아들의 성격을 올바르게 알기 위하여, 너희는 아버지의 신성한 성격에 대한 계시를 연구해야만 한다; 그들은 언제까지나 그리고 뗄 수 없는 하나이시다. 신성한 개인성으로서, 그들은 비교적 낮은 계층의 지능존재에게는 실질적으로 분별될 수 없다. 신(神) 자신들의 창조적 활동 안에서 기원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따로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중앙우주와 파라다이스에서 태어난 존재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우주적

통제의 한 개인적 합일체일 뿐 아니라 우주 관리-행정의 한정된 권역 안에서 기능하는 두 개의 분리된 개인성임을 식별한다.

6:8.3 (79.6) 개인으로서의 너희는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을 분리된 개별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는 그들은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들의 관리-행정에 있어서 그들은 너무도 서로 엮어지고 서로 상호관계이기에, 그들 사이를 식별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주의 관련사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혼란스러운 상호-연관 속에서 마주칠 때, 그들의 작용을 격리시키려는 시도는 항상 유익하지 않다; 하느님은 창시(創始)하는 생각이고, 아들은 표현 풍부한 말씀임을 오로지 기억하여라. 각 지역우주에서는, 이 불가분성(不可分性)이, 창조자 아들의 신성 안에서 개인성구현되어있고, 그는 천만 거주세계의 창조체들에게 아버지와 아들 두 분 모두를 상징한다.

6:8.4 (80.1) 영원한 아들은 무한하시지만, 그러나 그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개인을 통하여 그리고 무한한 영의 참을성 있는 사명활동을 통하여 그에게 다가갈 수 있다.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베푸는 증여 봉사와 무한한 영의 창조체에 대한 사랑 넘치는 사명활동 없이는, 물질적으로 기원된 존재들이 영원한 아들에게 도달할 희망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말은 똑같이 참되다: 하느님을-의식하는 필사자는, 이 천상의 대리자들의 안내와 도움으로 확실하게 파라다이스에 도달할 것이며, 언젠가는 이 장엄한 아들들 중의 아들의 개인적 현존에 서게 될 것이다.

6:8.5 (80.2) 비록 영원한 아들이 필사 개인성이 달성하는 것의 원형틀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아버지와 영의 두 분 실체를 파악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발견할 것인데, 왜냐하면 아버지는 너희의 인간 개인성의 실재 증여자이고, 무한한 영은 너희의 필사자 마음의 절대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진보의 파라다이스 경로 속에서 너희가 상승함에 따라, 영원한 아들의 개인성이 너희에게 점점 더 실제적이 될 것이고, 그의 무한하게 영적인 마음의 실체는 점진적으로 영성화 되어가는 너희의 마음에게 더 많이 식별될 수 있게 된다.

6:8.6 (80.3) 영원한 아들에 대한 개념은 너희의 물질적 마음 또는 그 이후의 모론시아 마음속에서 결코 환히 빛날 수는 없다; 너희가 영성화 되고 그리고 너희 영의 상승을 개시하기까지는, 영원한 아들의 개인성 이해는, 개인 속에서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한때 유란시아에 육신화 되었고 사람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살았던 분인, 파라다이스에서 기원된 창조자 아들 개인성에 대한 너희 개념의 생생함과 동일해지기 시작한다.

6:8.7 (80.4) 너희 지역우주에 두루 인간에 의해 그 개인성이 이해될 수 있는 창조자 아들 체험이,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에 대한 더욱 배타적 영적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그 충만한 의의(意義)를 파악할 수 없는 너희의 무능력을 보상해 주어야만 한다. 너희가 오르본톤과 하보나를 통하여 진보할 때, 너희가 너희 지역우주의 창조자 아들에 대한 깊은 기억과 생생한 모습을 뒤로 하고 떠날 때, 떠나가는 이 물질적인 체험과 모론시아 체험은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에 대한 강화되는 이해와 계속-넓어지는 개념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것인데, 그의 실체와 친숙함은 너희가 파라다이스를 향하여 진보함에 따라 더욱 증강될 것이다.

6:8.8 (80.5) 영원한 아들은 장대하고 영광스러운 개인성이시다.

그처럼 무한한 존재의 개인성의 실재성을 파악하는 것은 비록 필사이면서 그리고 물질적 마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의심할 바 없이, 그는 하나의 개인이시다. 나는 내가 말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나는 거의 셀 수 없이 수많은 시간을 영원한 아들의 신성한 현존 속에 섰었고, 그런 다음 그의 인자하신 권유를 실행하기 위하여 우주로의 여행을 떠나왔다.

6:8.9 (80.6)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을 설명하는 이 글을 작성하도록 배정된 신성한 조언자에 의하여 쓰여 졌다]

제 7 편 영원한 아들과 우주와의 관계

7:0.1 (81.1) 기원 아들은,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이 진화하고 있는 우주의 현상들 안에서 그것들에 속한 다양한 집단들의 살아있는 존재들과 함께 진보적으로 펼쳐짐에 따라서, 이 목적의 영적인 측면을 집행하는 데에 항상 관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영원한 계획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파라다이스 아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7:0.2 (81.2) 아들은 그와 조화-협동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종속 아들들에게 자신의 가능한 모든 것들을 증여하려고 애쓰는 점에서 아버지와 비슷하다. 그리고 아들은 그들의 공동 집행자인 무한한 영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증여하는 아버지의 자아-분배 본성도 또한 공유하고 있다.

7:0.3 (81.3) 영 실체들의 유지자로서의 둘째 근원이며 중심은, 만물을 매우 훌륭하게 유지하는 파라다이스 섬의 영원한 평형추이다. 이외같이,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중앙 섬의 절묘한 원형틀들의 물질적 아름다움 안에서 그리고 영원한 아들의 천상 개인성의 영적 가치 안에서 언제까지나 계시된다.

7:0.4 (81.4) 영원한 아들은 영 실체들 그리고 영적 존재들의 광대한 창조의 실재적 유지자이다. 영 세계는 아들의 기질, 개인적 행위성이며, 영 본성의 미(未)개인적 실체들은 절대 아들의 완전한 개인성의 뜻과 목적에 항상 응답한다.

7:0.5 (81.5) 그러나, 아들은 모든 영 개인성들의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개인적 창조체의 의지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따라서 그러한 의지적 존재들의 행동을 결정한다. 유란시아의 자연이 파라다이스와

신(神)의 완전성과 불변성을 참되게 계시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유의지 영 세계는 영원한 아들의 성격을 언제나 참되게 대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이나 천사의 자유의지의 행동을 무엇이라고 특징짓든지 간에, 모든 영 실체에 대한 아들의 우주적 중력 통제의 영원한 장악은 절대적으로 계속된다.

제 1 장. 영-중력 순환회로

7:1.1 (81.6) 하느님의 내재하심, 그의 전재, 전능, 그리고 전지에 대하여 가르쳐진 모든 것은, 영의 권역에서 아들에게도 똑같이 참이다. 모든 창조의 순수하고 우주적인 영 중력인, 배타적으로 영적인 이 순환회로는 파라다이스에 있는 둘째 근원이며 중심의 개인에게로 직접 되돌아가도록 안내한다. 그는 참된 모든 영 가치들에 대한 항상-현존하는 그리고 정확한 그 영적 장악의 통제와 작용을 주재한다. 그리하여 영원한 아들은 절대적인 영적 주권을 행사한다. 그는 글자 그대로 모든 영 실체들과 영성화한 가치들을, 과거에도 그러하였듯이, 그의 손바닥 안에 담고 있다. 우주의 영 중력에 대한 통제가 우주의 영적 주권이다.

7:1.2 (82.1)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 중력 통제는 시간과 공간에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영 에너지는 전달과정에서 줄어들지 않는다. 영 중력은 시간 지연을 당하는 일이 결코 없으며, 또한 공간의 감축도 겪지 않는다. 그것은 그것이 전달되는 거리의 제공에 따라 줄어들지 않는다; 순수한 영 힘의 순환회로들은 물질적 창조의 크기에 의해 지체되지 않는다. 그리고 순수한 영 에너지로서의 시간과 공간의 이러한 초월은 영원한 아들의 절대성 안에 선천적이다; 그것은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반(反)중력(重力) 기세의 간섭에 의한 것이 아니다.

7:1.3 (82.2) 영 실체들은 그들의 질적 가치, 영 본성의 실재적 등급에 따라서 영적 중력의 중심의 당기는 힘에 응답한다. 영 본체(본질특성)는, 물리적 물질(양-量)의 조직된 에너지가 물리적 중력에 응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 중력에 응답한다. 영적 가치들과 영 기세들은 실재적이다. 개인성의 관점에서 보면, 영은 창조의 혼이다; 물질은 그림자와 같은 물리적 몸체이다.

7:1.4 (82.3) 영 중력의 반응들과 동요들은 한 개별존재나 혹은 한 세계의 질(質)적 영적 지위, 영적 가치들의 내용과

언제든지 일치한다. 이 당기는 힘은 모든 우주 상황 또는
행성 조건 아래에서의 상호-그리고 내부-영 가치들에 대해
즉시 응답한다. 영적 실체가 우주 안에서 실재화될 때마다,
이러한 변화는 영 중력의 재(再)조절을 즉각 그리고
순간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러한 새로운 영은 실재로 둘째
근원이며 중심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필사 인간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존재가 되는 것과 똑 같이 그에 따라서,
그는 영 중력의 중심이자 근원인, 영적 아들에 도달할
것이다.

7:1.5 (82.4) 아들의 영적으로 당기는 힘은, 많은 아들관계의
파라다이스 계층들에게 점차 적은 규모로서, 선천적이다 .
이는 점차로 적은 창조 단위들에서 기능하는 영적
끌어당김의 지역 체계들이 절대 영-중력 순환회로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 중력의 이러한 하위-절대
초점화구현들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 개인성들의 신성의
일부분이며, 최극존재의 창발 하는 체험적 전반적-통제와
상관관계되어 있다.

7:1.6 (82.5) 영-중력의 당김과 응답은 우주들에서 전체로서
만이 아니라 개별존재들 그리고 개별존재들의

집단사이에서도 작용한다. 어느 세계, 인종, 국가, 또는 개별존재들의 신앙 집단의 영적인 그리고 영으로 된 개인성들 가운데에는 영적 응집력이 있다. 영적으로 비슷한 기호나 열망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는 영 본성의 직접적인 어떤 끌어당기려는 것이 있다. 유사(類似) 영이라는 단어는 전적으로 비유적 표현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7:1.7 (82.6) 파라다이스의 물질적 중력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아들의 영적 중력도 절대적이다. 죄와 반란이 지역우주 순환회로들의 작용을 방해할 수도 있지만, 영원한 아들의 영 중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루시퍼의 반란은 거주세계들로 이루어진 너희 체계에 그리고 유란시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우리는 그 결과로 말미암은 너희 행성의 영적 격리가 영원한 아들의 전재(全在)하는 영 또는 연관된 영-중력 순환회로의 현존과 기능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관찰하지 못한다.

7:1.8 (82.7) 대우주의 영-중력의 모든 반응들은 예측이 가능하다. 우리는 영원한 아들의 전재(全在)하는 영의

모든 활동과 반응을 인식하며, 그것들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사람이 유한한 물리적 중력의 작용을 계산해 내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잘-알려진 법칙들에 따라, 우리도 영적 중력을 측정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모든 영 사물들과 존재들 그리고 개인들에 대한 아들의 영의 변함없는 응답이 있으며, 이 응답은 언제나 그러한 모든 영적 가치들의 실재성의 정도(실체의 질적인 정도)에 따른다.

7:1.9 (83.1) 그러나 영원한 아들의 영적 현존의 바로 이러한 신뢰할 만하고 예측 가능한 기능 이외에, 그 반응을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을 접하게 될 때가 있다. 그러한 현상들은 아마도 창발하는 영적 잠재 영역에서의 신(神) 절대자의 조화-협동 활동을 나타내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영원한 아들의 영 현존이 장엄하고 무한한 개인성의 영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개인으로서의 신(神) 절대자의 행위로 추측되는 것과 연관된 반응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7:1.10 (83.2) 개인성 입장에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본다면, 영원한 아들과 신(神) 절대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원한 아들이 실질적인

영적 가치들의 권역을 지배하는 반면, 신(神) 절대자는 잠재적 영 가치들의 광대한 권역에 가득 퍼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 본성을 가진 모든 실재적 가치는 영원한 아들의 중력 장악 안에 머물지만, 만약 잠재적이면, 겉으로 보기에 신(神) 절대자의 현존 안에 머무는 것처럼 보인다.

7:1.11 (83.3) 영은 신(神) 절대자의 잠재로부터 창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화하는 영은 최극자와 궁극자의 체험적이고 미완성의 장악 속에서 상호관련성을 발견하며; 영은 결국에는 영원한 아들의 영적 중력의 절대 장악 속에서 최종 운명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체험적 영의 순환주기로 보이지만, 실존적 영은 둘째근원이며 중심의 무한 속에 선천적이다.

제 2 장. 영원한 아들의 관리-행정

7:2.1 (83.4) 파라다이스에서는 기원 아들의 현존과 그의 개인적 활동이 심오하며, 영적 감각에서 절대이다. 우리가 파라다이스로부터 하보나를 거쳐 일곱 초우주들 영역 속으로 나갈수록, 우리는 영원한 아들의 개인적 활동에 대해 점점 덜 감지하게 된다. 하보나-이후 우주들에서는 영원한 아들의 현존은, 최극자와 궁극자의 체험적

실체들에 의해 조건을 갖추고, 또한 신(神) 절대자의 무제한적 영 잠재와 조화-협동을 이루면서, 파라다이스 아들들 안에서 개인성구현된다.

7:2.2 (83.5) 중앙우주에서 기원적 아들의 개인적 활동은 영원한 창조의 절묘한 영적 조화 안에서 식별된다. 하보나는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이 원형틀 우주의 영적 지위와 에너지 상태는 완전하고 영속적인 균형을 이룬다.

7:2.3 (83.6) 초우주에서는 아들이 직접 계시거나 거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창조계들에서 그는 단지 초(超)개인적 표상(表象)을 지속할 뿐이다. 아들의 이러한 영 현시활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며; 그것들은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 순환회로 속에 있지 않다. 우리는 이들을 규정하는데 초(超)개인성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용어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유한한 존재들이다; 아(亞)절대도 아니고 절대도 아니다.

7:2.4 (83.7) 초우주들 안에서의 영원한 아들의 관리-행정은, 배타적으로 영적이고 초(超)개인적인데, 창조체 개인성에 의해 식별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개인적 영향력의 전체에- 스며드는 영적 충동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들의 권역에 속하는 모든 구역들의 모든 활동 위상 속에서 접하게 된다. 한편, 지역우주에는 영원한 아들이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개인 속에서 직접 계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한다. 여기에서 그 무한 아들은 조화-협동하는 창조자 아들들의 장엄한 무리단의 개인들 속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기능한다.

제 3 장. 개별존재에 대한 영원한 아들의 관계

7:3.1 (84.1) 지역우주 상승에 있어서 시간의 필사자들은 창조자 아들을 영원한 아들의 개인적 대표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들이 초우주 훈련 체제의 상승을 시작하게 되면, 시간의 순례자들은 영원한 아들의 영감을 주는 영의 숭고한 현존을 점점 더 감지하게 되며, 그들은 이러한 영적 격려의 사명활동을 받아들임으로써 혜택을 입을 수 있다. 하보나에서 그 상승자들은 전체에-스며드는 기원 아들의 영의 사랑으로 감싼 품을 더욱 많이 의식하게 된다. 전체 필사자 상승의 어떤 단계에서도 영원한 아들의 영은 시간 순례자의 마음이나 혼 안에 거주하지 않으나, 그의 자비는 진보하는 시간자녀들의 복지와 영적 보호와 항상 관계하고 늘 그 곁에 있다.

7:3.2 (84.2)

영원한 아들의 영-중력 끌어당김은 생존되는 인간 혼들의 파라다이스 상승의 선천적 비밀로 되어있다. 모든 진정한 영 가치들 그리고 진실한 영성화된 개별존재들은 영원한 아들의 영 중력의 확실한 장악 안에 붙들려 있다. 예를 들면, 필사자 마음은 물질적 기능구조로서 그의 생애를 시작하고, 결국에는 거의 완전한 영 존재로서 최종의 무리단에 편입되는데, 이 전체 체험 동안 점차적으로 물질중력에 덜 지배되고 이에 대응하여 영 중력의 안쪽으로 당기는 충동에 더욱 응답한다. 영-중력 순환회로는 문자 그대로 사람의 혼을 파라다이스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7:3.3 (84.3)

영-중력 순환회로는 믿음이 있는 인간 가슴의 진정한 기도를 인간 의식의 차원에서 신(神)의 실재적 의식으로 전달하는 기본적인 통로이다. 너희의 청원들 속에 있는 참된 영적 가치를 나타내는 그것은, 영 중력의 우주적 순환회로에 의해 점유될 것이고, 관계된 모든 신성한 개인성들에게 즉각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전달될 것이다. 각자는 그의 개인적 구역에 속한 것을 맡아 스스로 몰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실천적인 종교 체험에 있어서, 너희가 탄원할 때, 너희 지역우주의 창조자 아들을

떠 올리든지 아니면 만물의 중심에 계시는 영원한 아들을
떠 올리든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7:3.4 (84.4) 영-중력 순환회로의 분간하는 기능은 물질적 인간
몸속에 있는 신경 순환회로들의 기능과 아마도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감각작용들은 신경 경로들을 통해 안쪽으로
이동한다; 어떤 것들은 하부의 자율적 척추 중심에 의해
억류되다가 그리고는 그에 응답된다; 다른 것들은
자율적에서 덜하지만 그러나 습관에-훈련되어진, 하부의
뇌 중심으로 가며, 한편 가장 중요하고도 치명적인 유입
메시지들은 이들 종속적인 중심들을 섬광처럼 지나,
즉각적으로 인간 의식의 최고 차원들 안에 등록된다.

7:3.5 (84.5) 그러나 영적 세계의 뛰어난 기법은 얼마나 더
완전한지 모른다! 최극의 영적 가치를 담은 어떤 것이든지
너희의 의식 속에 생기면, 그리고 일단 네가 그것을
표현하면, 모든 창조의 절대 영(靈) 개인성에게 그것이
직접 번개처럼 전해지는 것을 막을 힘이 우주 안에는 전혀
없다.

7:3.6 (84.6) 반대로, 만일 너희가 간청한 것들이 순수하게
물질적이고 전적으로 자아-중심적이라면, 그러한

무가치한 기도들이 영원한 아들의 영 순환회로 안에 머무를 곳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계획도 존재하지 않는다. “영으로 쓴” 것이 아닌 어떤 청원의 내용이든지 우주적인 영적 순환회로 안에서 머물 곳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순수하게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요청들은 죽어버릴 것이다; 그것들은 참된 영 가치들의 순환회로들 속에서 상승하지 못한다. 그러한 말들은 “소리 나는 징과 울리는 팽과리”와 같다.

7:3.7 (85.1) 필사자의 탄원을 유효하게 하는 것은, 동기가 되는 생각, 영적 내용물이다. 말은 아무 가치가 없다.

제 4 장. 신성한 완전 계획

7:4.1 (85.2) 영원한 아들은 신성한 진보계획: 의지 창조체의 창조, 진화, 상승 그리고 완전을 위한 우주 계획의 성공적인 실행에서, 아버지와 영속하는 연락을 이룬다. 그리고 신성한 신실함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영원히 동등하다.

7:4.2 (85.3) 아버지와 그의 아들은 영원함의 완전을 향하여, 시간의 물질적 존재들을 전진하게 하는 이 거대한 달성 계획의 구성과 실행에서 하나가 되신다. 공간의 상승하는 혼들의 영적 높임을 위한 이 구체적인 투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합해진 창조며, 그들은 무한한 영의 협동을 받아 그들의 신성한 목적의 연관적 집행에 몰두해 있다.

7:4.3 (85.4) 완전성 달성의 이 신성한 계획은, 놀라울 정도로 상관관계되어 있지만, 독특한 우주 모험의 세 가지 사업들을 포용 한다:

7:4.4 (85.5) 1. 진보적 달성 계획. 이것은 진화적 상승에 대한 우주 아버지의 계획인데, “우리 자신의 형상대로 필사 창조체들을 만들자”라는 아버지의 제안에 영원한 아들이 찬성하였을 때 그에 의해 기탄없이 받아들여진 계획이다. 시간의 창조체들을 올라가도록 하려는 이러한 준비 속에는 생각 조절자들을 아버지가 증여하는 것 그리고 개인성이라는 특권을 물질적 창조체들에게 자질로서 부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7:4.5 (85.6) 2. 증여 계획. 그 다음의 우주적 계획은 영원한 아들과 그의 조화-협동 아들들의 위대한 아버지-계시 사업이다. 이것은 영원한 아들이 제안한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그가 하느님의 아들들을 진화 창조계에 증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개인성구현하고 사실화하고, 그리고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를 모든 우주들의

창조체들에게 육신화하고 실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증여 계획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는, 그리고 사랑의 이 봉사사명의 일시적 모습으로서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잘못 인도된 창조체 의지가 영적 위험 속에 자리해 온 그러한 것의 복구자로서 활동한다. 달성 계획의 기능 속에 자연이 발생할 때는 언제든지, 그리고 어느 곳이든지, 만일 반역이 이 사업을 우연히 망치거나 복잡하게 만든다면, 증여 계획의 긴급 조치가 즉시 시행된다.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반란이 일어난 바로 그 영역 속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 구체들의 영적 지위를 복구하는 구출자로 활약할 것을 서약하며 준비를 갖춘다. 그리고 주권을 얻은 체험적 증여 생애와 관련하여, 한 조화-협동 창조자 아들이 유란시아에서 그러한 영웅적 봉사를 수행했다.

7:4.6 (85.7) 3. 자비 사명활동의 계획. 달성계획과 증여계획이 작성되고 선포된 후에, 무한한 영은 혼자서 그리고 스스로, 자비 사명활동의 거대하고도 우주적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투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것은 달성사업과 증여사업 둘 모두에 대한 실천적이고 효력적인 작용에 매우 본질적인 봉사이며,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영적 개인성들

모두는, 그렇게 신(神)의 셋째 개인 본성의 일부인, 자비
사명활동의 영을 함께 한다. 창조뿐만 아니라 관리-행정에
있어서도, 무한한 영은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 집행자로서
진실 되게 그리고 글자그대로 기능한다.

7:4.7 (86.1) 영원한 아들은 창조체 상승에 대한 아버지의 우주
계획의 개인적 수탁자(受託者), 신성한 보호관리자이다.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우주적 명령을
공표한 후에, 아버지는 영원한 아들에게 이 거대한 사업을
맡겼으며; 영원한 아들은 자신의 신성한 협조자인 무한한
영과 이 숭고한 사업을 함께 육성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신(神)들은 창조, 통제, 진화, 계시, 그리고
직무에서—필요한 경우에는 복구와 재건의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조화-협동한다.

제 5 장. 증여의 영

7:5.1 (86.2) “하보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엄청난 명령을 모든 창조로의 알림에
영원한 아들은 우주 아버지와 아무 조건 없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 그 초청-명령은 영원한 아들과 그의
조화-협동하고 연관하는 아들들의 광대한 가족의 생존에

관한 계획과 증여에 관한 구체적인 투사 모두에 동기를 부여해 왔다. 그리고 바로 이 증여들에 있어서 하느님의 아들들은 모든 진화 창조체들에게 “길, 진리, 그리고 생명”이 되어 왔다.

7:5.2 (86.3)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가 전(前)개인적 생각 조절자라는 선물을 통하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직접 인간 존재들과 접촉을 이룰 수 없지만, 영원한 아들은 그가 인간의 현존 속에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 자체로서 나타나게 될 수 있을 때까지 신성한 아들관계의 일련의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변화에 의해, 창조된 개인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7:5.3 (86.4) 영원한 아들의 순수한 개인적 본성은 단편화 될 수 없다. 영원한 아들은 영적 영향력으로서 또는 어떤 개인으로서 사명활동할 수 있고, 다르게는 결코 할 수 없다. 아들은 아버지-조절자가 거기에 참여하는 그 감각에서는, 창조체 체험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발견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아들은 증여의 기법에 의해 이 한계를 보충한다. 단편화된 실존개체들의 체험이 우주

아버지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육신화 체험이 영원한 아들에게 의미를 주는 것과 같다.

7:5.4 (86.5) 영원한 아들은 신성한 뜻, 인간 마음속에 거주하는 생각 조절자로서 필사 사람에게 오지 않지만, 영원한 아들은 그의 아들의 신성한 개인성, 네바돈의 미가엘이 나사렛의 예수의 인간적 본성으로 육신화 되었을 때 유란시아에 있는 필사 사람에게 왔었다. 창조된 개인성들의 체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그러한 창조체들의 바로 그 본성을 취하고 실재적 창조체 자신들로서 그들의 신성한 개인성들을 육신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들별의 비밀인 육신화는, 그렇지 않다면 개인성 절대론이라는 만물을-둘러싸는 족쇄가 되는 그것에서 아들이 벗어나는 기법이다.

7:5.5 (86.6) 아주 먼 옛날, 영원한 아들은 상승하는 시간 순례자를 포함하여 하보나의 모든 거주민과 순례자의 깨우침과 전진을 위하여 중앙 창조의 순환회로 각각에 자신을 증여했었다. 일곱 번의 이 증여들 중 어느 경우에도 그는 상승자 또는 하보나 시민으로서 기능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였다. 그의 체험은 독특했었다; 그것은 어떤 인간이나 다른 순례자와 함께 또는 그러한 존재로서가 아니었지만, 어떤 면에서 초(超)개인적 감각에서 연관적이었다.

7:5.6 (86.7) 뿐만 아니라 그는 내부 하보나 순환회로와 파라다이스의 해안 사이에 끼어 있는 수면 상태를 지나가지도 않았다. 개인성의 의식이 중지되는 일은 절대 존재인 그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계통의 영적 중력이 중심을 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증여기간 동안, 영적 광명의 중앙 파라다이스 거점은 빛을 잃지 않았고, 우주 영 중력에 대한 아들의 장악이 줄지 않았다.

7:5.7 (87.1) 하보나에서의 영원한 아들의 증여들은 인간이 상상하는 범위 안에 있지 않다; 그것들은 초월적이다. 그가 그 당시와 그 이후에 전체 하보나의 체험에 첨가시켰지만, 우리는 그가 그의 실존적 본성의 예상되는 체험적 수용능력에 첨가시켰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한다. 그것은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증여 신비 속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아들이 이 증여 임무들에서 무엇을 획득하였든지

우리는 그가 그 후로 영원히 존속시키고 있다고 믿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7:5.8 (87.2) 신(神)의 둘째 개인의 증여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영원한 아들의 한
아들의 하보나 증여를 이해하는데, 그는 중앙우주의
순환회로들을 확실하게 지나갔고 신(神) 달성을 위한
상승자의 준비가 되는 그 체험들을 실재적으로
공유하였다. 이 분이 최초-탄생 창조자 아들인 기원적
미가엘이었으며, 그는 그랜드판다, 모든 필사자들 중에서
하보나에 처음으로 도달한 자의 시대에 그들과 함께 각
순환계의 단계를 직접 여행하면서, 이 순환회로에서 다음
순환회로로 상승하는 순례자들의 일생 체험을 두루 거쳐
갔다.

7:5.9 (87.3) 이 기원적 미가엘이 다른 무엇을 계시하였던지
간에, 그는 기원적 어머니 아들의 초월 증여가 하보나의
창조체들에게 실제임을 보여 주었다. 하느님의 영원한
아들은 점진적으로 하보나에 도달하는 일곱
순환회로들에서 시간-공간 순례자들의 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파라다이스의 힘과 영화로움을 일곱 번이나

버렸으며, 이것을 분명하게 앎으로써, 그 증여가 너무나 실제적이라 하보나 순환회로를 순회하는 모험여행에서 수고하는 시간 순례자 각자는 언제까지나 늘 기운을 내고 힘을 얻는다.

7:5.10 (87.4) 영원한 아들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에 두루, 모든 하느님의 아들에게 그들의 증여 사명활동에서 본보기로서의 영감(靈感)이 된다. 조화-협동 창조자 아들들 그리고 연관-동료 치안법관 아들들은, 계시되지 않은 아들관계의 다른 계층들과 함께, 창조체 삶의 다양한 계층에게 그리고 자신들이 창조체가 되어서 자신을 증여하려는 이 경이로운 자발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영에서 그리고 기원의 사실들뿐만 아니라 본성에서의 친족관계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 각자가 공간의 세계에 펼치는 증여에서, 이들 증여를 통하여 그리고 증여에 의해서 그리고 증여 안에서, 영원한 아들이 우주의 지능적 의지 창조체에게 자신을 증여해 왔다는 것이 참말이 되는 것이다.

7:5.11 (87.5) 모든 속성에 있어서는 아닐지라도, 영과 본성에 있어서, 각 파라다이스 아들은 기원적 아들에 대한

신성하고 완전한 초상화이다. 파라다이스 아들을 본 자는 누구든지 하느님의 영원한 아들을 이미 본 것이라는 말은 정말로 옳다.

제 6 장.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

7:6.1 (87.6) 하느님의 아들들이 다수(多數) 있다는 지식의 부족함이 유란시아에서의 큰 혼돈의 근원이다. 그리고 이 무지함은 이 신성한 개인성들의 비밀회의에 대한 기록으로서: “하느님의 아들들이 기쁨을 선포하였고, 모든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다.”는 말씀을 대면할 때에도 그대로 있다. 구역 표준시간으로 매 천년마다, 다양한 계층의 신성한 아들들이 그들의 주기적 비밀회의를 위해 함께 모인다.

7:6.2 (87.7) 영원한 아들은 하강하는 하느님의 아들들의 모든 계층에게 창조에 두루 그들이 기능하듯이 그토록 풍성하게 특징짓는 자비와 봉사의 찬미할만한 속성들의 개인적 근원이다. 영원한 아들은, 속성의 무한함 전체는 아니더라도, 모든 신성한 본성을, 그의 신성한 성격을 계시하기 위하여 영원한 섬으로부터 우주들의 우주에게로 내보내는 파라다이스 아들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한다.

7:6.3 (88.1) 기원이며 영원한 아들은 "최초로" 완벽하고 그리고 무한한 사고를 가진 우주 아버지의 후손-개인이다.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새롭고, 기원적이고, 동일하고, 독특하고, 절대적인 개인적 사고를 함께 구체적으로 투사할 때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창조적 개념은 새롭고도 기원적인 창조자 아들의 존재와 개인성으로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인성구현된다. 영 본성과 신성한 지혜 그리고 조화-협동으로 창조하는 힘 안에서, 이 창조자 아들들은 아버지 하느님과 그리고 아들 하느님과 잠재적으로 동등하다.

7:6.4 (88.2) 창조자 아들들은 파라다이스로부터 시간의 우주들 속으로 들어가고,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통제하는 그리고 창조적인 대리자들의 협동을 얻어서, 진보적 진화의 지역우주의 조직을 완성한다. 이들 아들들은 물질과 마음과 영에 대한 중앙의 그리고 우주적인 통제에 배속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첫째근원이며 중심과 그의 조화-협동 절대자들의 선재(先在)와 우선권과 시원성에 의해 그들의 창조적 행위들 속에 제한된다. 이 아들들은 그들이 현존시킬 수 있는 것들만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절대적인 관리-행정은

실존(實在)의 우선권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고
현존(顯存)의 영원함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아버지는
우주들 안에서 여전히 시원적으로 남아 계신다.

7:6.5 (88.3) 창조자 아들들이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개인성구현되는 것과 똑같이, 치안법관 아들들은 아들과
영에 의해 개인성구현된다. 이들은 창조체 육신화의 체험
속에서, 시간과 공간 창조계의 생존의 심판관들로서
봉사하는 권한을 얻는 아들들이다.

7:6.6 (88.4)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다재다능한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을 개인성구현하기 위하여 연합하는데,
그들은 인간과 그리고 신성한 모든 개인성들에 대한
숭고한 선생들로서 대우주를 돌아다닌다. 그리고 또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아들관계의
수많은 다른 파라다이스 계층들이 있다.

7:6.7 (88.5) 기원적 어머니 아들과 전체 창조 전반에 흩어져
있는 이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무리들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배타적인 교통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거의-절대적인 영적 관계적-연합의 결속 안에 그것들을
연합하는 영적 친족관계의 본질특성 속에 그 기능이

선천적으로 들어 있는 통로이다. 이 아들관계내부의 순환회로는, 둘째 근원이며 중심의 개인 안에 역시 중심을 두는 영 중력의 우주 순환회로와 전혀 다르다.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개인들 안에서 기원되는 하느님의 아들들 전체는 영원한 어머니 아들과 직접적이고도 계속적인 교통을 유지한다. 그리고 그러한 교통은 순간적이다; 그것은 때로 공간에 의해 조건이 갖추어짐에도 불구하고 시간과는 독립적이다.

7:6.8 (88.6) 영원한 아들은 파라다이스 아들관계의 모든 계층들의 지위와 생각들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에 관하여 항상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함의 시원적 중앙 창조 안에 있는 그리고 조화-협동 창조자 아들들의 2차 창조계 안에 있는 모든 창조체들의 가슴속에 존재하는 영적 가치 모두에 관하여 항상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

제 7 장. 아버지의 최극 계시

7:7.1 (88.7) 영원한 아들은 우주 아버지의 영과 개인성에 대한 완벽하고도 배타적이고 우주적이고 최종적인 계시이다. 그리고 아버지에 관한 모든 지식과 정보는 영원한 아들

그리고 그의 파라다이스 아들들로부터 와야만 한다. 영원한 아들은 영원부터 존재하고, 전적으로 그리고 영적 분별된-자격 없이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신성한 개인성에 있어서 그들은 조화-협동을 이룬다; 영적 본성에 있어서 그들은 동등하다; 신성에 있어서는 그들이 동일하다.

7:7.2 (89.1) 하느님의 성격은 아들의 개인 안에서 본질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수 없는데, 이는 신성한 아버지가 무한하게 완전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 성격과 개인성은 피조 존재들의 계시를 위하여 비(非)개인적이고 비(非)영적인 것을 벗어 버림으로서 증폭된다.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개인성을 훨씬 뛰어넘지만,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아버지 개인성의 영 본질특성들 전체는 영원한 아들의 절대적 개인성 안에 영적으로 존재한다.

7:7.3 (89.2) 기원 아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모든 창조에게 아버지의 영적 그리고 개인적 본성의 우주적 계시를 이룩하는 일에 몰두되어 있다. 중앙우주, 초우주들, 지역우주들, 또는 거주민이 사는 행성들에서,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우주 아버지를 계시하는 이는 파라다이스

아들이다. 영원한 아들과 그의 아들들은 우주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창조체의 큰길을 계시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높은 기원을 갖는 우리들도 영원한 아들 안에서 그리고 영원한 아들의 아들들 안에서 그의 성격 그리고 개인성에 대한 계시를 공부할 때 훨씬 더 풍부하게 아버지를 납득한다.

7:7.4 (89.3) 아버지는 영원한 아들의 신성한 아들들을 통해서만 개인성으로서 너희에게 내려오신다. 그리고 너희는 이 동일한 살아있는 길에 의해 아버지에게 도달한다; 너희는 신성한 아들들의 이 집단의 안내에 의해 아버지에게로 상승한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너희의 개인성이 우주 아버지의 직접적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실로 남아 있다.

7:7.5 (89.4) 영원한 아들의 멀리-퍼지는 영적 관리-행정에 속하는 이 광범한 활동들 전체 속에서, 아버지가 개인이신 것처럼 진실로 그리고 실재적으로 아들이 개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정말로, 한 때 인간 계층이었던 존재들에게는 영원한 아들이 우주 아버지보다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시간 순례자들이 하보나 순환회로들을

통해 진보할 때, 너희는 너희가 아버지를 식별할 준비를 갖추기 전에 아들에게 도달할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7:7.6 (89.5) 너희는 한 때 땅에서 사람의 아들이었고 지금은 너희 지역우주의 드높여진 주권자인 사람의 아들이자 하느님의 아들—너희 자신의 창조자 아들에 의해 사랑 넘치는 봉사 속에서 만들어졌던 이 신성한 속성들에 대한 계시를 너희가 묵상하면서 너희는 영원한 아들의 성격과 자비로운 본성을 더 많이 이해해야만 한다.

7:7.7 (89.6)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을 묘사하는 이 글을 작성하도록 배정된 신성한 조언자에 의해 씌어졌음]

제 8 편 무한한 영

8:0.1 (90.1) 영원에서 되돌아가, 우주 아버지의 “첫 번째” 무한 그리고 절대 생각이 영원한 아들 안에서 그것의 신성한 표현을 위한 그러한 완전하고도 합당한 말씀을 발견할 때, 상호 표현과 병합된 행동의 우주적이고 무한한 대리자에 대하여 생각-하느님과 말씀-하느님 모두의 최극 욕망이 뒤따른다.

8:0.2 (90.2) 영원의 여명기에 아버지와 아들 모두는 그들의 상호 내부의존, 그들의 영원한 그리고 절대적 하나됨을 무한하게 인식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성한 동반자 관계의 무한하고도 영속하는 서약을 맺게 된다. 결코-끝남없는 이 협정은 영원의 모든 순환계에 두루 그들의 연합된 개념들의 집행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영원성 사건 이후 아버지와 아들은 언제나 이 신성한 연합 안에 여전하시다.

8:0.3 (90.3) 우리는 무한한 영, 신(神)의 셋째 개인의 영원함의 기원과 마주하고 있다.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하느님이 동일한 그리고 무한한 행동—절대적 생각-계획의 집행—을 공동으로 착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무한한 영이 어엿한 실존(實在)로 솟아난다.

8:0.4 (90.4) 신(神)들의 기원의 계층을 그렇게 설명함에 있어서, 나는 너희로 하여금 그들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단지 그렇게 할 뿐이다. 실체 안에서 그들은 모두 영원으로부터 실존하는 세 분이다; 그들은 실존적이다. 그들은 시간적인 시작과 끝이 없으며; 그들은 조화-협동, 최극, 궁극, 절대, 그리고 무한하다. 그들은 그들이시며

항상 이셨으며 언제까지나 이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셋으로 분명하게 개별존재화 되어있지만 영원하게 연관된 개인들,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하느님 그리고 영 하느님이다.

제 1 장. 행동의 하느님

8:1.1 (90.5) 과거의 영원 속에서, 무한한 영의 개인성구현에 따라 신성한 개인성 주기는 완전을 이루면서 완성된다. 행동의 하느님이 실존하며, 광대한 공간 무대는 거대한 창조의 드라마—우주 모험—영원한 시대들의 신성한 파노라마를 위한 장치이다.

8:1.2 (90.6) 무한한 영의 첫 번째 활동은 그의 신성한 부모들, 아버지-아버지와 어머니-아들에 대한 검열과 인식이다. 그 분, 영은 분별불가적으로 두 분 모두를 정체화한다. 그는 그들의 병합된 본성과 연합된 기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분리된 개인성들 그리고 무한 속성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다. 그 다음은, 초월적인 자의성과 영감이 이는 자발성과 함께, 자진하여, 신(神)의 셋째 개인은, 그의 첫째 그리고 둘째 개인과의 평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느님에 대하여 영원한 충성심을 맹세하고 아들
하느님에 대하여 영속하는 의존을 인정한다.

8:1.3 (90.7) 영원의 주기는 이 활동행위의 본질 속에 그리고
각각의 개인성 독립성과 세분 모두의 집행적 연합에 대한
상호적 인식 안에 선천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실존하고 있다. 우주적 공간의 그 무대는
영원한 아들의 개인성을 통하여 그리고 아버지-아들
창조자 동반자 관계의 실제 행위에 대한 집행 대리자인
행동의 하느님의 집행에 의해, 우주 아버지의 목적에 대한
창조적 전개에 중첩적이고 영원한 파노라마를 위해
마련된다.

8:1.4 (91.1) 행동의 하느님이 기능하고 그리고 죽은듯하던
공간의 저장소가 움직여 일어난다. 10억 개의 완전
구체들이 실존(實在)로 확 생긴다. 가정의 이 영원순간
이전에 파라다이스 속에 선천적으로 있는 공간-
에너지들은 실존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작용성이지만,
그것들은 존재의 실재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끌어당김에 대한 물질적 실체들의 반응에
의하지 않고는, 물리적 중력도 측정될 수 없다. 이 영원하게

멀리 있는 (가정된) 이 순간에 물질적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10억 세계들이 물질화하는 바로 그 즉시, 파라다이스의 영속하는 장악 안으로 그것들을 붙잡기에 충분하고 적당한 중력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8:1.5 (91.2) 하느님들의 창조를 통해서, 이제는 두 번째 에너지가 확 생기며, 넘쳐흐르는 이 영은 영원한 아들의 영적 중력에 의해 즉시 장악된다. 그래서 2중 중력-포용된 우주는 무한의 에너지와 접촉하고 있고 신성의 영 안에 잠겨 있다. 이런 방법으로 생명의 토양이 무한한 영의 연관된 지능 순환회로들 안에서 현시되는 마음의 의식함에 대하여 준비된다.

8:1.6 (91.3) 잠재적인 실존의 이 씨앗들이 하느님들의 중앙 창조에 두루 확산하게 되면, 아버지가 활동하고, 창조체 개인성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는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현존이 모든 조직된 우주를 채우고 모든 사물과 존재를 파라다이스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8:1.7 (91.4) 무한한 영은 아버지와 아들의 병합된 개념들과 연합된 뜻에 순종하여 자신에 의해 자신과 함께 그리고 자신 안에서 창조되는 이 중앙우주인, 하보나 세계들의

탄생과 동시에 영원화를 이룬다. 셋째 개인은 바로 이 공동 창조의 활동에 의해 신(神)구현화 되며, 그리하여 그는 언제까지나 공동 창조자가 된다.

8:1.8 (91.5) 이때는, 그들의 공동 연관이고 배타적 집행자인,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행동에 의한 그리고 그 안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창조적 확대의 웅장하고도 경이로운 시기이다. 휘저어 일어나는 이 시기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이 강대한 활동행위들을 확증하려는 무한한 영의 빈약한 개방자료를 갖고 있으며, 그는 다만 중앙우주와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이 개인성과 의식적 실존(實在)에 대한 그의 달성과 동시에 그것으로 영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이다.

8:1.9 (91.6) 간단히 말해서, 무한한 영은 그가 영원하기 때문에 중앙우주 또한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들의 우주의 역사의 전통적인 시작점이다. 만물의 중앙에 존재하고, 매우 절묘하게 기능하고 있는 광대한 우주를 구체화시킨 창조 에너지와 행정-관리적 지혜의, 이 엄청난 분출 이전의 사건 또는 활동행위에 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 없고 어떤 기록도 실존하지 않는다. 이 사건

너머에는 탐구할 수없는 영원의 활동행위 그리고
무한함의 심연(深淵)-절대 신비—가 깔려있다.

8:1.10 (91.7) 그리고 우리는 필사 창조체들의 시간에-뉘이고
그리고 공간에-조건이 갖추어진 마음에 대한 해석상의
겸손으로서,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순차적 기원을 그렇게
묘사한다. 사람의 마음이 우주 역사를 마음에 그려보기
위해서는 하나의 출발점을 반드시 가져야만 되며, 나는
영원의 역사적 개념에 접근하는 이 기법을 제공하도록
지도를 받아 왔다. 물질적 마음 안에서는, 첫째 원인이
있어야 모순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역사의 모든
위상들에 있어서 그리고 창조적 활동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아들과 영이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공존한다는
사실을 모든 창조체 마음들에게 동시에 가르치면서, 우주
아버지를 모든 창조의 첫째근원이며 절대적 중심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파라다이스 섬의 그리고
분별불가, 우주, 그리고 신(神) 절대자들의 실체성과
영원성을 어떤 감각에서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한다.

8:1.11 (92.1) 시간 자녀들의 물질적 마음은, 영원 속에 계신 아버지를 마음에 그려보는 것에 도달하기가 충분하다. 우리는 어떤 자녀든지 처음에 자녀-부모 상황의 관계들을 숙지함으로써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개념을 하나의 전체로써 가족을 포용하기까지 확대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실제로 가장 잘 연결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 후에 그 자녀의 성숙되는 마음은 가족 관계의 개념을, 공동체, 종족 그리고 세계에 대한 관계성으로, 그 다음에는 우주, 초우주, 그리고 심지어는 우주들의 우주에 대한 것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무한한 영의 본성

8:2.1 (92.2) 공동 창조자는 영원으로부터 계시며 우주 아버지 그리고 영원한 아들과 온통 그리고 분별된-자격 없이 하나이다. 무한한 영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본성뿐만 아니라 기원 아들의 본성 역시 완전성 속에 반영한다.

8:2.2 (92.3) 셋째근원이며 중심은 여러 이름들로 알려져 있다: 우주 영, 최극 안내자, 공동 창조자, 신성한 집행자, 무한 마음, 영들의 영, 파라다이스 어머니 영, 공동 행위자, 최종 조화-협동자, 전재(全在) 영, 절대 지능, 신성한 행동;

그리고 유란시아에서는 때때로 그는 조화우주 마음과 혼동되고 있다.

8:2.3 (92.4) 신(神)의 셋째 개인을 무한한 영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적으로 타당한데, 이는 하느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질을 기본적 실체로 보고, 그리고 영과 함께 마음을 물질에 뿌리를 둔 것으로 가정(假定)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향이 있는 물질적 창조체들은, 만일 그가 무한 실체, 우주 조직가, 또는 개인성 조화-협동자로 불린다면 셋째근원이며 중심을 더 잘 이해할 것이다.

8:2.4 (92.5) 신성의 우주 계시로서의, 무한한 영은 탐구될 수 없으며 철저하게 인간 이해력을 벗어난다. 영의 절대성을 감지하기 위해서, 너희는 오직 우주 아버지의 무한성을 묵상하고 기원 아들의 영원성에 대한 경이로움 속에 서 있으면 된다.

8:2.5 (92.6) 무한한 영의 개인 안에는 정말로 신비로움이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더욱 그러하다. 아버지의 본성의 모든 측면에서, 공동 창조자가 그의 무한성을 가장 현저하게 드러낸다. 주(主)우주 가 결국에는 무한성에 이르기까지 확대되더라도, 공동 행위자의 영 현존, 에너지

통제 그리고 마음 잠재는 그러한 무제한 창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발견될 것이다.

8:2.6 (92.7) 모든 면에서 우주 아버지의 완전성과 정의로움 그리고 사랑을 공유하지만, 무한한 영은 영원한 아들의 자비의 속성을 향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하여 대우주에 대해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자비 사명활동자가 된다. 언제든지 그리고 항상—우주적으로 그리고 영원히—영은 자비의 사명활동자인데, 하느님의 사랑을 신성한 아들이 계시하듯이 신성한 영이 하느님의 자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8:2.7 (93.1) 모든 선(善)이 아버지 안에서 기원되기 때문에 영이 아버지보다 더 선(善)을 소유할 수 없지만, 영의 활동들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선(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아들의 불변성은 영 존재들에게 그리고 그 구체들의 물질적 창조체들에게 무한한 영의 개인성들의 사랑스러운 사명활동과 끊임없는 봉사에 의해 매우 실제적인 것이 된다.

8:2.8 (93.2) 공동 창조자는 아버지의 사고의 아름다움과 진리의 성격 전체를 물려받는다. 그리고 신성의 이 장엄한

특색들은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마음의 무한하고도 영원한 지혜에 복종하여 조화우주 마음의 최극-인접 차원들에서 조화-협동을 이룬다.

제 3 장.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영의 관계

8:3.1 (93.3) 영원한 아들이 우주 아버지의 “첫 번째” 절대 그리고 무한 사고에 대한 말씀 표현이듯이, 공동 행위자는 절대적 생각-말씀 연합의 아버지-아들 개인성 동반자 관계에 의한 병합된 행동을 위한 “첫 번째” 완성된 창조적 개념, 곧 계획의 완전한 실행이다. 셋째근원이며 중심은 중앙이면서도 명령에 의한 창조와 함께 영원성을 갖게 되며, 오직 이 중앙 창조만이 모든 우주들 중에서 실존으로서 영원하다.

8:3.2 (93.4) 셋째근원이 개인성구현된 이후로, 첫째 근원은 더 이상 우주 창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우주 아버지는 자신의 영원한 아들에게 모든 가능한 것을 위임한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아들은 모든 가능한 권한과 힘을 공동 행위자에게 증여한다.

8:3.3 (93.5) 영원한 아들과 공동 행위자는, 동반자들로서 그리고 그들의 조화-협동 개인성들을 통하여, 실존하게

되는 모든 하보나-이후 우주를 계획하고 만든다. 영은 최초이자 중앙의 창조에서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유지하는 동일한 개인적 관계를 뒤이어 일어나는 모든 창조 안의 아들에 대해 유지한다.

8:3.4 (93.6) 영원한 아들의 창조자 아들과 무한한 영의 창조 영이 너희와 너희 우주를 창조하였다; 그들이 이미 조직한 것을 아버지가 신실함으로 유지하는 동안, 그들의 일을 육성시키고 지탱하며,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 스스로 만든 창조체들에 대한 사명활동은 이 우주 아들과 이 우주 영에게 맡겨진다.

8:3.5 (93.7) 무한한 영은, 모든-사랑의 아버지와 모든-자비의 아들의, 시간과 공간의 모든 세계에 있는 진리를-사랑 넘치는 모든 혼들을 자신들에게로 이끄는 그들 공동의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한, 효력을 발휘하는 대리자다. 영원한 아들이 우주들의 창조체를 위한 완전성 달성이라는 그의 아버지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상승 프로젝트가 아버지-아들 계획이 되는 순간, 무한한 영은 그들의 연합된 그리고 영원한 목적의 실행을 위해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 관리행정자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무한한 영은 신성한 현존에 대한
그리고 영 개인성들에 대한 자신의 모든 자원들을
아버지와 아들에게 바친다; 그는 생존되는
의지창조체들을 파라다이스 완전의 신성한 경지로
드높이는 엄청난 계획에 모든 것을 전념해 왔다.

8:3.6 (93.8) 무한한 영은 우주 아버지와 그의 영원한 아들에
대한 완벽하고 배타적이며 우주적인 계시이다. 아버지-
아들 동반자관계에 대한 모든 지식은 무한한 영을 통하여
생각-말씀 연합의 공동 대표자를 갖게 되어야만 한다.

8:3.7 (93.9) 영원한 아들은 우주 아버지에게 접근하는 유일한
큰길이며, 무한한 영은 영원한 아들을 도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상승하는 시간 존재들은 오직 영의 끈기 있는
사명활동에 의해서만 아들을 발견할 수 있다.

8:3.8 (94.1) 만물의 중심에서 무한한 영은 상승하는 순례자들에
의해 달성될 파라다이스 신(神)들 중 첫 번째이시다. 셋째
개인은 둘째 그리고 첫째 개인을 감싸고 있으며 그러므로
아들과 그의 아버지에게 제시되려는 모든 후보자들에
의해 항상 처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8:3.9 (94.2) 그리고 다른 많은 길 안에서 영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하게 대표하고 비슷하게 봉사한다.

제 4 장. 신성한 사명활동의 영

8:4.1 (94.3) 파라다이스 중력이 만물을 거기에서 함께 잡아두는 물리적 우주와 나란히 평행하여, 영적 우주는 거기에서 아들의 말씀이 하느님의 생각을 해석하고 그리고 “육신이 되어” 연관된 창조자들의 병합된 본성인 사랑 넘치는 자비를 실증한다. 그러나 이 물질적 그리고 영적 창조 전체 안에 그리고 그것들에 두루, 무한한 영과 그의 영 자손들이 그들이 협동으로 고안하고 만든 지능적 자녀들에게 신성한 부모들의 병합된 자비, 인내심 그리고 영속하는 애정을 보여주는 광대한 무대가 존재한다. 마음에 대한 영구적인 사명활동은 영의 신성한 성격의 본질이다. 그리고 공동 행위자의 모든 영 자손은 사명활동에 대한 이 열정, 봉사하고자 하는 이 신성한 충동에 참여한다.

8:4.2 (94.4)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아들은 자비이고, 영은 사명활동—모든 지능 창조체에 대한 신성한 사랑과 끝없는 자비의 사명활동—이다. 영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의 개인화구현이다; 그의 안에서 그들은

우주적 봉사를 위해 영원하게 연합되어 있다. 영은 창조체 창조에 적용되는 사랑, 아버지와 아들의 병합된 사랑이다.

8:4.3 (94.5) 유란시아에서는 무한한 영이 전재(全在)하는 영향력, 우주적 현존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보나에서는 너희가 그를 실재적 사명활동의 개인적 현존으로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파라다이스 영의 사명활동은 그의 조화-협동 영들 그리고 시간과 공간 세계들에 있는 창조된 존재들을 돌보는 권속 개인성들 각각에게 모범적이고 영감을 주는 원형틀이다. 이 신성한 우주 안에서 무한한 영은 영원한 아들의 초월적인 일곱 가지 모습들 속에 충만하게 참여했으며; 마찬가지로 그는 하보나의 순환회로에서의 일곱 번 증여에 기원적 미가엘 아들과 함께 하였고, 그리하여 이들 높은 곳의 완전한 이들 순환계를 지나가는 시간의 각 순례자에게 공감해주고 납득해주는 영 사명활동자가 된다.

8:4.4 (94.6) 하느님의 창조자 아들이 구체적으로 투사된 지역우주를 위해 창조자관계 책임을 지기로 수락할 때, 무한한 영의 개인성들은 이 미가엘 아들이 창조하는 모험의 자기 임무 위에서 나아갈 때,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사명활동자들로서 자신들을 바친다. 특히 창조 딸의 개인, 지역우주 어머니 영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높은 차원의 영적 달성을 향해 물질적 창조체들의 상생을 육성하는 과업에 헌신되어 있는 무한한 영을 발견한다. 그리고 창조체 사명활동의 이 모든 작업은 이 지역우주 창조자 아들들의 목적들과 완전한 조화 속에서, 그리고 그 개인성들과 긴밀한 관계적-연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8:4.5 (94.7) 우주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개인성을 계시하는 거대한 임무에 하느님의 아들들이 참여하고 있듯이, 무한한 영은 각 우주의 모든 자녀들의 개별 마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병합된 사랑을 계시하는 끝없는 사명활동에 전념되어 있다. 이 지역 창조계 안에서 영은 하느님의 아들들 중 어떤 이처럼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물질적 인종들에게로 내려오지는 않지만, 무한한 영과 그의 조화-협동 영들은 자신들을 낮추는 일을 하는데, 그들은 이 세상 실존의 낮은 경로들을 통하여 너희 옆에서 너희를 안내하는 천사들로서 나타나기까지, 놀라운 일련의 신성 감소 과정을 기쁨으로 견딘다.

8:4.6 (95.1) 바로 이 일련의 감소 과정에 의해 무한한 영은 실재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개인으로서, 동물-기원 구체들의 각 존재에게 매우 가까이 접근한다. 그리고 영은 자신의 실존을 조금도 무효로 만들지 않은 채, 모든 것들의 중앙에서 신(神)의 셋째 개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행한다.

8:4.7 (95.2) 공동 창조자는 정말로 그리고 언제까지나 위대한 사명활동 개인성, 우주 자비 사명활동자이다. 영의 사명활동을 이해하려면, 그가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에 대한 그리고 아들의 영원한 자비에 대한 병합된 묘사라는 진리를 깊이 생각하라. 아무튼, 영의 사명활동이 오로지 영원한 아들과 우주 아버지를 나타내는 일에만 제한된 것은 아니다. 무한한 영 역시 자기 자신의 이름과 권한으로 그 영역의 창조체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셋째개인은 신성한 존엄으로 있으며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비의 우주적 사명활동을 증여한다.

8:4.8 (95.3) 무한한 영의 창조 가족의 비교적 낮은 계층의 사랑하는 그리고 지침이 없는 사명활동을 사람이 더 많이 배울 때, 그는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병합된 행동의 초월적 본성과 비할 데 없는 성격을 훨씬 더 찬양하고

찬미할 것이다. 정말로 이 영은 “항상 정의(正義)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이며 “그들의 기도에 항상 열려있는 신성한 귀”이다.

제 5 장. 하느님의 현존

8:5.1 (95.4) 무한한 영의 현저한 속성은 전재(全在)이다. 모든 우주들의 우주에 두루 만물에-스며드는 이 영이 어디에나 현존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주적이고 신성한 마음의 현존과 너무나도 가까운 관계이다. 신(神)의 둘째 개인 그리고 셋째 개인 모두는 그들의 항상-현존하는 영들에 의해 모든 세계에서 나타내진다.

8:5.2 (95.5) 아버지는 무한하며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의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조절자들의 증여에 있어서 그리고 개인성의 순환회로화에 있어서, 아버지가 홀로 활동하지만, 지능존재들과의 영 기세의 접촉에서는 그가 영원한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의 개인성들과 영들을 이용한다. 그는 자기 뜻에 따라 아들과 또는 공동 행위자와 동일하게 영적으로 현존한다; 그는 아들과 함께 그리고 영 안에서 현존한다. 아버지는 가장 확실하게 어디에나 현존하며, 우리는 이들 다양하지만 그러나 연관된 기세,

영향 그리고 현존들의 어느 부분 또는 전체를 통하여
그리고 그것에 의해, 그의 현존을 식별한다.

8:5.3 (95.6) 너희의 종교적 기록들에서는 하느님의 영이라는
용어가 파라다이스에 있는 무한한 영과 너희 지역우주의
창조 영 모두를 번갈아 나타내곤 하는 것 같다. 성령은
파라다이스 무한한 영의 이 창조 딸의 영적 순환회로이다.
성령은 각 지역우주에 토착적인 순환회로이고 그 창조의
영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무한한 영은
전재(全在)이다.

8:5.4 (95.7) 많은 영적 영향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모두 하나로
존재한다. 심지어는 생각 조절자들의 활동도, 다른 모든
작용들과는 독립적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영과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병합된 영향들의 영 사명활동과
일정하게 부합한다. 이 영적 현존들이 유란시아인 들의 삶
속에서 작용할 때, 그들은 분리될 수 없다. 그들의 다양한
기원에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속에서 그리고 너희 혼
위에서 그들은 하나의 영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연합된 이
영적 보살핌이 체험될 때, 그것은 너희에게 “너희가
실패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줄 수 있고 높은 곳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 앞에서 네가 죄 없음을 제시할 수 있는”
최극자의 영향이 된다.

8:5.5 (96.1) 무한한 영이 공동행위자임을; 아버지와 아들 모두
다 그의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기능함을; 그가 그
자신으로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로써 그리고
아버지-아들로써 현존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이것을
인정하여 그리고 많은 추가적 이유들로 인하여 무한한
영의 영 현존은 종종 “하느님의 영”으로 간주된다.

8:5.6 (95.2) 모든 영적 사명활동의 연락을 하느님의 영으로
계속 간주될 수도 있는데, 이는 그러한 연락이 아버지
하느님, 아들 하느님, 영 하느님, 그리고 칠중 하느님의
영들 -심지어는 최극자 하느님 영의 진정한 연합이기
때문이다.

제 6 장. 무한한 영의 개인성

8:6.1 (96.3)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광범위한 증여와 멀리 퍼지는
분배가, 그의 개인성의 사실성을 흐리게 하거나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손상되게 만들지 말라. 무한한 영은 우주
현존, 영원한 행동, 조화우주 힘, 거룩한 영향력, 그리고

우주 마음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인 동시에 무한하게 그 이상이지만, 또한 그는 하나의 참되고 신성한 개인성이다.

8:6.2 (96.4) 무한한 영은 하나의 완벽하고 완전한 개인성,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신성한 동일 존재 그리고 조화-협동 존재이다. 공동 창조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주들의 좀 더 높은 지능존재들에게는 실제이며 눈에 보이고; 정말로 그 이상인데, 이는 모든 상승자들이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에게 다가갈 수 있기 전에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것이 영이기 때문이다.

8:6.3 (96.5) 무한한 영, 신(神)의 셋째 개인은 너희가 개인성과 연관하는 모든 속성들을 소유하게 된다. 영은 절대 마음을 자질로서 부여 받고 있다: "영은 모든 것들, 심지어는 하느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영은 마음뿐만 아니라 의지도 자질로서 부여받았다. 자신의 선물을 증여함에 있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모든 일들은 하나이고 아주 똑같은 영이며, 모든 사람에게 따로따로 그리고 그가 바라는 대로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다."

8:6.4 (96.6) "영의 사랑"은 실제적이고, 그의 슬픔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영을 슬프게 만들지 말라." 우리가

무한한 영을 파라다이스 신(神)으로 보든지 또는 지역우주 창조 영으로 보든지, 우리는 공동 창조자가 셋째근원이며 중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신성한 개인임을 발견한다. 이 신성한 개인성은 또한 우주에게 하나의 개인으로서 반응한다. 영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귀 있는 자는 영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영 자신이 너희를 위해 중재에 나선다.” 영은 창조된 존재들에게 직접적이고도 개인적 영향을 주는데, “이는 하느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자마다, 그들이 하느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8:6.5 (96.7) 설사 우주들의 우주의 멀리 있는 세계에 대한 무한한 영의 사명활동의 현상들을 우리가 지켜본다 해도, 셋째근원이며 중심 안에서 기원되는 각가지 존재들로 구성된 설명되지 않은 큰 무리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활동하는 이 동일한 조화-협동 신(神)을 우리가 고찰한다 하더라도, 설사 영의 전재(全在)성을 우리가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동일한 셋째근원이며 중심이 하나의 개인, 만물과 모든 존재와 모든 우주의 공동 창조자인 것을 단언한다.

8:6.6 (96.8) 우주의 관리-행정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하게 상호-연관된다. 비록 각자가 모든 창조에 한 개인적 사명활동으로 관여하지만, 세 분 모두는, 언제까지나 자신들을 하나로 만드는 창조의 봉사와 통제안에서, 신성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연동되어 있다.

8:6.7 (97.1) 무한한 영의 개인 안에서 그리고 분별불가한 완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상호적으로, 항상 계시는데, 이는 영이 아버지 같고 아들 같으며, 또한 마찬가지로 두 분으로서의 아버지와 아들이 언제까지나 하나와 같기 때문이다.

8:6.8 (97.2) [무한한 영의 본성과 활동을 묘사하기 위하여 옛적으로 늘 계신이들에 의해 임명된 유버사의 신성한 조연자에 의해 유란시아에 제시되었음]

제 9 편 우주에 대한 무한한 영의 관계

9:0.1 (98.1)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파라다이스의 현존 안에서, 자신들을 개인성구현하기 위하여 연합할 때 생소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 영원 상황에서 공동 행위자가 절대 마음과 조화-협동을 이루고 에너지 조종의 독특한

특권들을 자질로서 부여받은 무제한적 영성으로서
개인성구현하는 것은 아무것도 사전조짐이 없었다. 그의
존재로서의 나타남은, 중심화 하는 완전의 속박에서의
그리고 개인성 절대론의 족쇄에서의 아버지의 해방을
완성한다. 그리고 이 해방은 섬기는 영들로서 봉사하도록
잘 적응되는 존재들 그리고 뒤이어지는 진화하는
우주들의 물질적 창조체들까지 창조하는 공동 행위자의
놀라운 힘에서 드러난다.

9:0.2 (98.2) 아버지는 사랑과 의지에 있어서, 영적 생각과
목적에 있어서 무한하다; 그는 우주 유지자이다. 아들은
지혜와 진리에 있어서, 영적 표현과 해석에 있어서
무한하며; 그는 우주 계시자이다. 파라다이스는 기세 자질-
부여를 위한 잠재에 있어서 그리고 에너지 권역을 위한
수용능력 안에서 무한하다; 그것은 우주 안정자이다. 공동
행위자는 합성하는 독특한 특권, 모든 존재하는 우주
에너지들, 모든 실재적 우주 영들, 그리고 모든 실제적 우주
지능들을 조화-협동시키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
셋째근원이며 중심은 우주 아버지의 신성한 계획과
영원한 목적의 결과 안에서 나타난 각가지 에너지와
다양한 창조계의 우주 통합자이다.

9:0.3 (98.3) 무한한 영, 공동 행위자는 우주적이고 신성한 사명활동자이다. 영은 아들의 자비와 아버지의 사랑을, 나아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안정되고, 변함없고 의로운 공의(公義)의 조화 속에서, 끊임없이 베푼다. 그의 영향과 개인성들은 항상 너희 주변에 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너희를 알고 진정으로 너희를 납득한다.

9:0.4 (98.4) 우주에 두루, 공동 행위자의 대리자들이 모든 공간의 기세와 에너지들을 끊임없이 조종한다. 첫째근원이며 중심과 마찬가지로, 셋째근원이며 중심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모두에 대해 응답한다. 공동 행위자는 하느님의 합일성에 대한 계시이며, 그의 안에 만물—사물, 의미, 그리고 가치; 에너지, 마음, 그리고 영들—이 이루어져 있다.

9:0.5 (98.5) 무한한 영은 모든 공간에 가득 퍼져있다; 그는 영원의 순환계에 내주한다; 그리고 영은, 아버지와 아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하며 변함없으며—절대이다.

제 1 장.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속성

9:1.1 (98.6) 셋째근원이며 중심은 여러 이름들, 모든 정의되어지는 관계성과 기능의 인식으로 알려져 있다: 영

하느님으로서, 그는 아들 하느님과 아버지 하느님의 동등한 조화-협동하는 그리고 신성한 개인성이다. 무한한 영으로서, 그는 전재(全在)하는 영적 영향력이다. 우주 조종자로서, 그는 힘-통제 창조체들의 조상이며 공간의 조화우주 기체들을 활성화시키는 이이다. 공동 행위자로서, 그는 아버지-아들의 공동 대표자이며 동반자신분 집행자다. 절대 마음으로서, 그는 우주 전반에 걸친 지성 자질의 근원이다. 행동의 하느님으로서, 그는 동작과 변화 그리고 관계의 명백한 조상이다.

9:1.2 (99.19)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속성들 중 일부는 아버지로부터 기인되고 일부는 아들로부터 기인되지만, 반면에 아버지 또는 아들 안에서 활동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 셋째근원이며 중심을 영구화시키는 아버지-아들 동반자 관계가 파라다이스의 절대성이라는 영원한 사실과 공명 속에서 그리고 인식 속에서 일치하여 기능하는 것이라고 추측하는 방법 이외에는 거의 설명될 수 없는 속성들이 여전히 있다. 공동 창조자는 신(神)의 첫째 그리고 둘째 개인의 병합된 그리고 무한한 개념의 충만함을 체현한다.

9:1.3 (98.8) 너희가 아버지를 기원적 창조자로 상상하고 아들을 영적 관리행정자로 상상하는 반면, 너희는 셋째근원이며 중심을 우주 조화-협동자, 무제한적 협동의 사명활동자로 생각해야만 한다. 공동 행위자는 모든 실재적 실체의 상호-관계자이다; 그는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말씀을 말하는 신(神) 보고(寶庫)이고 그리고 행동으로 중앙 섬의 물질적 절대성을 영원하게 여긴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진보라는 우주 계층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하느님의 섭리는 공동 창조자와 진화하는 최극존재의 권역이다. 어떤 실재적 또는 실재화되는 실체도 셋째근원이며 중심과의 결국 생겨나는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9:1.4 (98.9) 우주 아버지는 에너지-이전(以前), 영-이전(以前) 그리고 개인성의 영역들을 다스리며; 영원한 아들은 영적 행동들의 구체들을 지배한다; 파라다이스 섬의 현존은 물리적 에너지와 물질화 되는 힘의 권역을 통합한다; 공동 행위자는 아들을 대표하는 무한한 영으로서 뿐만 아니라 파라다이스의 기세와 에너지들의 우주 조종자로서 작용하고, 그리하여 우주 실존(實在)와 그리고 절대 마음을 생기게 한다. 공동 행위자는 대우주에 두루 적극적이고 뚜렷한 개인성으로서 기능하는데, 특별히

영적 가치들, 물리적-에너지 관계들 그리고 참된 마음 의미들의 좀 더 높은 구체들에서 그러하다. 그는 에너지와 영이 연관하고 상호작용하는 곳마다 그리고 그러한 때마다 특별하게 기능한다; 그는 마음과의 모든 상호작용들을 지배하고, 영적 세계에서 거대한 힘을 발휘하며, 에너지와 물질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셋째근원은 항상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본성에 대한 표현이다.

9:1.5 (98.10) 셋째근원이며 중심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전재(全在)성을 완전하게 그리고 분별된-자격 없이 공유하는데, 때로는 전재(全在) 영으로 불린다. 특유하고도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방법으로, 마음의 하느님은 우주 아버지 그리고 영원한 아들의 전지성을 공유한다; 영의 지식은 심오하고 완벽하다. 공동 창조자는 우주 아버지의 전능의 어떤 위상들을 현시하지만 마음의 권역 안에서만 실재적으로 전능하다. 신(神)의 셋째 개인은 마음 영역들에 대한 지적 중심이고 우주적 관리행정자이다; 이 면에 있어서 그는 절대이다—그의 주권은 분별불가이다.

9:1.6 (98.11) 공동 행위자는 아버지-아들 동반자관계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모든 행동들은 아버지-파라다이스 관계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그리고 특정 기능들에 있어서는 그가 체험적 신(神)들—최극자 하느님과 궁극자 하느님—의 발전의 미완성을 보충하는 것처럼 보인다.

9:1.7 (100.1) 그리고 여기에 무한한 신비가 있다: 무한자는 아들 안에서 그리고 파라다이스로서 자신의 무한을 동시에 계시했고, 그리고는 신성에서 하느님과 동등하고, 아들의 영적 본성을 반영하고, 그리고 파라다이스 원형들을 활성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존재, 주권에서는 잠정적으로 종속적이지만 행동에서는 여러 면에서 명백하게 가장 다재다능한 존재가 실존(實在)로서 솟는다. 그리고 행동에서의 그러한 명백한 우월성은, 심지어 물리적 중력—파라다이스 섬의 우주적 현시활동—보다도 우월한 것으로,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속성 안에서 나타난다.

9:1.8 (100.2) 물리적인 에너지와 사물들에 대한 이 초월적 통제 이외에도, 무한한 영은 자신의 영적 사명활동 속에 그토록 절묘하게 계시된 인내와 자비 그리고 사랑의 속성들을

훌륭하게 자질로서 부여받았다. 영은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자비로 공의(公義)를 덮기에 최극으로 적당하다.
영 하느님은, 기원이며 영원한 아들의 숭고한 친절과
자비로운 애정 전체를 소유한다. 너희가 기원된 우주는
공의(公義)라는 모루와 고난이라는 망치 사이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망치를 사용하는 자들은 자비의 자녀들,
무한한 영의 영 후손들이다.

제 2 장. 전재(全在)하는 영

9:2.1 (100.3) 하느님은 삼중적 의미에서 영이다: 그 자신이
영이다; 그는 그의 아들 안에서 분별된-자격 없이 영으로
나타나며; 공동 행위자 안에서 마음과 결연된 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영적 실체들 이외에, 우리는 체험적
영 현상들—최극존재와 궁극 신(神) 그리고 신(神)
절대자의 영들—을 식별한다고 생각한다.

9:2.2 (100.4) 무한한 영은 아들이 우주 아버지에 대한 보완인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아들을 보완한다.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의 영성화된 개인성구현이다; 무한한 영은 영원한
아들과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구현된 영성화(靈性化)이다.

9:2.3 (100.5) 유란시아의 민족을 파라다이스 신(神)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초물질적 힘의 영적 기세와 근원들의 속박되지 않은 많은 계통들이 있다. 생각 조절자들의 우주 아버지와의 직접적인 연결, 영원한 아들의 영-중력의 광범위한 영향, 그리고 공동 창조자의 영적 현존이 존재한다. 아들의 영과 영의 영 사이에는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다. 셋째 개인은 그의 영적 사명활동에서, 마음과 영이 합하여 또는 영 단독으로 기능할 수 있다.

9:2.4 (100.6) 이들 파라다이스 현존들 이외에, 유란시아인 들은 신성의 이상(理想)과 최극 완전의 목표를 향하여, 목적에서의 참된 자와 가슴에서의 정직한 자를 위쪽으로 그리고 안쪽으로 언제까지나 인도하는, 사랑 넘치는 개인성들의 거의 끝없는 그들의 배열들로 이루어진, 지역우주와 초우주의 영적 영향들과 행동들로 인하여 혜택을 받고 있다.

9:2.5 (100.7) 우리는 영원한 아들의 우주 영의 현존을 안다—우리는 틀림없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 무한한 영, 신(神)의 셋째 개인의 현존은 심지어 필사 사람도 알 수

있는데, 이는 물질적 창조체들이, 인류의 종족들 위에
증여한 지역우주의 성령으로 기능하는, 이 신성한 영향의
혜택을 실재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존재들은 또한 조절자, 우주 아버지의 미(未)개인적
현존도 어느 정도 의식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을 들어 올리고
그리고 영성화하는데 일하는 이들 신성한 영들 모두는,
일치 속에서 그리고 완전한 협동 속에서 활동한다. 그들은
필사자 상승과 완전성 달성 계획들에 대한 영적 작용
안에서 하나로서 존재한다.

제 3 장. 우주 조종자

9:3.1 (101.1) 파라다이스 섬은 물리적 중력의 근원이며
본체이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 물리적 우주들의 우주
안에서 중력이 가장 실제이며 영원하게 믿을만한 것 중
하나임을 너희에게 알려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중력은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공동으로 후원되는 기세들과
에너지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없는데, 그것들은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개인에게
위탁되어 왔으며 기능적으로 그와 연관되어 있다.

무한한 영은 독특하고도 놀라운 힘—반(反)중력—을 소유한다. 이 힘은 아버지나 아들 안에서는 기능적으로 (관찰되도록) 제시되어 계시지는 않는다. 셋째근원 속에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적 중력의 끌어당김에 저항하는 이 능력은 우주 관계들의 특정 위상들에 대한 공동 행위자의 개인적 반응들에서 제시된다. 그리고 독특한 이 속성은 무한한 영의 특정한 상급 개인성에게 전송해 줄 수 있다.

반(反)중력은 지역 구조 안에서 중력을 폐기시킬 수 있다; 그것은 동등한 기세 현존의 행사에 의해 그렇게 한다. 그것은 오직 물질적 중력과 관련하여 작용하며, 마음의 활동이 아니다. 자이로스코프의 중력-저항 현상은 반(反)중력의 효과를 잘 예시하지만 반(反)중력의 원인을 예시하는 데는 아무 가치는 없다.

계속 나아가며 공동 행위자는 기세를 초월하고 에너지를 중화시킬 수 있는 힘들을 나타내 보인다. 그러한 힘들은 물질화 지점까지 이르는 에너지 늦춤으로써 그리고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기법들으로써 작용한다.

9:3.5 (101.5) 공동 창조자는 에너지도 아니고 에너지의 근원도 아니고 에너지의 운명도 아니다; 그는 에너지의 조종자이다. 공동 창조자는 활동—동작, 변화, 변형, 조화-협동, 안정, 그리고 평형—이다. 파라다이스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통제에 종속하는 에너지들은 셋째근원이며 중심과 그의 다양한 대리자들의 활동에 대해 자연적으로 응답한다.

9:3.6 (101.6) 우주들의 우주는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힘-통제 창조체들, 물리통제자들, 힘 지도자들, 힘 중심들, 그리고 물리적 에너지들에 대한 규제와 안정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동의 하느님의 다른 대표자들로 가득 차 있다. 물리적 기능을 갖는 독특한 이 창조체들 전체는 반(反)중력과 같은 힘 통제의 다양한 속성들을 갖는데, 그들은 대우주의 물질과 에너지의 물리적 평형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활용한다.

9:3.7 (101.7) 행동의 하느님의 이 모든 물질적 활동들은 자신의 기능을 파라다이스 섬에 관계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정말로 힘의 대리자들은 모두 영원한 섬의 절대성을 존중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의존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공동 행위자는 파라다이스를 위해서나, 또는 응답하여, 활동하지 않는다. 그는 직접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 활동한다.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비(非)개인적, 미(未)개인적,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개인적이지 않은 행위들은 모두 공동 행위자 자신의 의지적인 행동들이다; 그것들은 어떤 존재나 또는 어떤 것의 반영, 파생 또는 반향도 아니다.

9:3.8 (101.8) 파라다이스는 무한성의 원형틀이다; 행동의 하느님은 그 원형틀을 활성화시키는 분이다. 파라다이스는 무한성의 물질적 지레받침이다;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대리자들은 물리적 창조의 기능구조 안으로 물질적 차원의 동기를 부여하고 자발성을 주입시키는 지능의 지렛대들이다.

제 4 장. 절대 마음

9:4.1 (102.1) 그의 물리적 그리고 영적 속성들로부터 구분되는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지적 본성이 존재한다. 그러한 본성에 접촉하는 것은 어렵지만 연관—개인적은 아니지만 지적으로—할 수는 있다. 그것은, 셋째 개인의 물리적 속성들 그리고 영적 성격과 기능의 마음 차원에서 구별할

수 있지만, 이 본성은 개인성들의 식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물리적 또는 영적 현시활동으로서 기능하는 일은 결코 없다.

9:4.2 (102.2) 절대 마음은 셋째 개인의 마음이다; 그것은 영하느님의 개인성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마음은, 기능하고 있는 존재 안에서, 에너지, 혹은 영, 또는 그 모두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마음은 에너지 안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지 않다; 에너지는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마음에 대해 응답할 수 있다; 마음은 에너지 위에 엮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의식이 순수한 물질적 차원 안에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마음이 순수한 영에 더해져야만 하는 것도 아닌데, 이는 영이 태생적으로 의식적이고 정체성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영은 항상 지능적인데,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있다. 그것은 이런 마음 또는 저런 마음일 수 있고, 그것이 전(前)마음 또는 초(超)마음 심지어는 영적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아는 것과 동등하다. 영의 통찰력은 마음의 의식을, 초월하고, 초래하며 이론적으로 앞서서 일어난다.

9:4.3 (102.3) 공동 창조자는 마음의 권역, 우주적 지능존재의 영역들 안에서만 절대적이다.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마음은 무한하며; 그것은 우주들의 우주의 활동적이고 기능하는 마음 순환회로들을 철저하게 초월한다. 일곱 초우주들의 마음 자질은 일곱 주(主) 영들, 공동 창조자의 1차 개인성들로부터 기인된다. 이들 주(主) 영들은 조화우주 마음으로서 대우주에 마음을 분배하며, 너희 지역우주는 조화우주 마음의 오르본톤 유형의 네바돈 변형으로 가득 퍼져있다.

9:4.4 (102.4) 무한 마음은 시간을 무시하며, 궁극적 마음은 시간을 초월하며, 조화우주 마음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공간에서도 그러하다: 무한 마음은 공간으로부터 독립되지만, 무한으로부터 마음의 보조 차원들로 강하할 때, 지성은 공간의 사실과 한계들을 점점 더 고려해야만 한다.

9:4.5 (102.5) 조화우주 마음이 영에 응답하듯이, 조화우주 기세는 마음에 응답한다. 영은 신성한 목적이고 그리고 영 마음은 행동하는 신성한 목적이다. 에너지는 사물이고, 마음은 의미이며, 영은 가치이다. 심지어 시간과 공간

안에서도 마음은 에너지와 영 사이의, 영원 안에서 상호 친족관계임을 암시하는, 그러한 상대적 관계들을 확립한다.

9:4.6 (102.6) 마음은 영의 가치들을 지능의 의미들로 변형시키며; 의지작용은 물질적 그리고 영적 권역들 모두에서 마음의 의미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파라다이스 상승은 영, 마음 그리고 에너지에 있어서 상대적이고 차별적인 성장을 포함한다. 개인성은 체험적 개별존재성의 이들 요소의 통합자이다.

제 5 장. 마음의 사명활동

9:5.1 (102.7) 셋째근원이며 중심은 마음에서 무한하다. 만일 우주가 무한을 향해 성장해야 한다면, 그의 마음 잠재는 여전히 한없는 수의 창조체들에게, 적절한 마음 그리고 그 밖의 지능의 필요조건들을 자질로서 부여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9:5.2 (102.8) 창조된 마음의 권역 안에서 셋째 개인은 그의 조화-협동 그리고 종속 연관-동료들과 함께 최극을 다스린다. 창조체 마음의 영역들은 셋째근원이며 중심 안에서 배타적으로 기원된다; 그는 마음의 증여자이다. 심지어

아버지 단편들도 무한한 영의 마음 행동과 영적 기능에 의해 그 길이, 그들에 적절하게 준비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내주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발견한다.

9:5.3 (103.1) 마음의 독특한 특징은 그것이 그러한 광범위한 생명에게 증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창조적인 그리고 창조체 연관-동료들을 통하여 셋째근원이며 중심은 모든 구체들에 있는 모든 마음들에 대해 사명활동 한다. 그는 지역우주들의 보조자들을 통해 인간 그리고 인간이하 지성에 사명활동하며, 물리통제자들의 대리자들을 통해서는 가장 원시적인 유형의 살아있는 물체들 중 가장 낮은 비(非)체험적 실존개체들에 대해서까지 사명활동한다. 그리고 마음-영 또는 마음-에너지 개인성들의 사명활동이 항상 마음의 방향이다.

9:5.4 (103.2) 신(神)의 셋째 개인이 마음의 근원이기 때문에, 진화하는 의지창조체들이 영원한 아들 또는 우주 아버지들 중 어느 하나에 대해 하는 것보다 무한한 영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을 형성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발견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럽다. 공동 창조자의 실체는 바로 그 인간 마음의 실존 안에서는 불완전하게 드러난다.

공동 창조자는 조화우주 마음의 조상이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개별존재화된 순환회로로서, 그것은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창조 딸에 의해 지역우주 안에 증여되어지는 그 조화우주 마음의 미(未)개인적 부분이다.

9:5.5 (103.3) 셋째 개인이 마음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의 모든 현상을 신성하다고 짐작해서 가정하면 안 된다. 인간 지성은 동물 종족의 물질적 기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물리적 본성이 파라다이스의 아름다움과 조화에 대한 참된 계시가 아닌 것처럼, 우주 지능은 마음이신 하느님의 참된 계시가 아니다. 완전함이 자연 안에 있지만 자연은 완전하지 않다. 공동 창조자는 마음의 근원이지만 마음은 공동 창조자가 아니다.

9:5.6 (103.4) 유란시아에서, 마음은 생각 완전성의 본질과 너희의 미성숙한 인간 본성의 진화하는 정신활동 사이에 있는 하나의 타협이다. 너희의 지적 진화에 대한 계획은 정말로 숭고한 완전성의 하나이지만, 육신의 장막 안에서 너희가 기능하는 한 너희는 그러한 신성한 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마음은 정말로 신성한 기원이 있고, 신성한

운명을 갖지만, 너희 필사자 마음들은 아직 신성한 존엄성이 없다.

9:5.7 (103.5) 너무나도 종종, 아주 너무나도 종종, 너희는 너희 마음을 불성실로 훼손시키고 불의로 마음을 그슬리게 한다; 너희는 그것들을 동물적 두려움에 굴복시키고 쓸데없는 걱정으로 왜곡시킨다. 그러므로 마음의 근원은 신성하지만, 상승하는 너희 세계에서는 너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음은 위대한 찬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찬양이나 경배는 더 더욱 될 수 없다. 미성숙하고 비활동적인 인간 지성에 대한 깊은 사색은 오직 겸손의 반응으로 이끌어야만 한다.

제 6 장. 마음-중력 순환회로

9:6.1 (103.6) 우주적 지능존재인 셋째근원이며 중심은 모든 창조 안에서 각 마음, 각 지능존재를 개인적으로 의식하며, 그리고 그는 멀리 퍼지는 우주들 안에 있는 이 모든 물리적, 모론시아적, 그리고 마음 자질의 영적 창조체들과 개인적이고도 완전한 접촉을 유지한다. 마음의 이 모든 활동들은, 셋째근원이며 중심 안에 초점화구현 되어있고

그리고 무한한 영의 개인적 의식의 한 부분인, 절대 마음-중력 순환회로 안에 장악된다.

9:6.2 (103.7) 아버지가 모든 개인성을 자신에게로 잡아당기는 것과 같이, 그리고 아들이 모든 영적 실체를 끌어당기는 것과 같이, 공동 행위자도 모든 마음에게 어떤 잡아당기는 힘을 더욱 행사한다; 그는 우주적 마음 순환회로를 분별불가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한다. 모든 참되고 진정한 지적 가치들, 모든 신성한 생각들과 완전한 관념들은 반드시 이 절대적인 마음의 순환회로 안으로 끌려 들어간다.

9:6.3 (104.1) 마음 중력은 물질적 그리고 영적 중력과 무관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 두 개가 부딪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 중력이 항상 기능한다. 셋 전체가 연관할 때, 개인성 중력이 물질적 창조체—물리적 또는 모론시아적, 유한 또는 아(亞)절대—를 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자질은 미(未)개인적 존재 안에서도, 그들이 생각하는 본질특성을 갖추게 하며 그리고 개인성이 전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의식을 자질로 부여한다.

9:6.4 (104.2)

개인성 존엄의 자아신분은, 인간적이거나 신성하거나 불멸이거나 혹은 잠재적 불멸이거나, 어찌 되었건, 영, 마음 또는 물질에서 기원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주 아버지의 증여이다. 뿐만 아니라 영과 마음과 그리고 물질적 중력의 상호작용이 개인성 중력의 출현에 전제조건도 아니다. 아버지의 순환회로는 영 중력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물질적 존재를 포용하거나, 혹은 물질적 중력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영 존재를 포함할 수 있다. 개인성 중력의 작용은 항상 우주 아버지의 의지적 활동이다.

9:6.5 (104.3)

한편으로는 마음이, 순전히 물질적 존재들 안에서는 에너지와 연관되어 있고, 순전히 영적인 개인성들 안에서는 영과 연관되어 있지만, 인간을 포함하여 수많은 개인성 계층들은 에너지와 영 둘 모두와 연관되는, 그런 마음들을 소유한다. 창조체 마음의 영적 측면들은 반드시 영원한 아들의 영-중력 당김에 대해 응답한다; 물질적 특성을 지닌 것들은 물질적 우주의 중력 충동에 응답한다.

9:6.6 (104.4) 조화우주 마음은, 에너지나 영 그 어느 것과도
연관하지 않을 때, 물질적 또는 영적 순환회로 그 어떤 것의
중력 요구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순수 마음은 오직 공동
행위자의 우주적 중력 장악에만 종속된다. 순수 마음은
무한 마음과 가까운 일가이고, 무한 마음(영과 에너지의
절대자의 이론적 조화-협동)은 외견상으로 분명히 그
자체로서 하나의 법이다.

9:6.7 (104.5) 영-에너지 분기가 크면 클수록, 마음의 관찰 가능한
기능도 더욱 커지며; 에너지와 영의 다양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마음의 관찰 가능한 기능도 적어진다. 분명하게,
조화우주 마음의 최대 기능은 공간의 시간 우주들 안에
있다. 이곳에서 마음은 에너지와 영의 중간-지대에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음의 더 높은
차원들에서는 이것은 참말이 아니다. 파라다이스에서는,
에너지와 영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9:6.8 (104.6) 마음-중력 순환회로는 신뢰할 만하다; 그것은
파라다이스에 있는 신(神)의 셋째 개인으로부터
발산되지만, 관찰 가능한 마음의 기능이 모든 다 예측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알려진 창조에 두루, 그 기능이 예측될

수 없는 거의 납득할 수 없는 현존이 마음의 이 순환회로와 나란히 있다. 우리는 이 예측 불가능성이 우주 절대자의 기능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고 믿는다. 이 기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것이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오직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오직 창조체들에 대한 관계에 관하여, 우리는 오직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9:6.9 (104.7) 유한 마음의 예측 불가능성의 어떤 위상들은 최극존재의 미완성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공동 행위자와 우주 절대자가 맞닿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곳인, 광대한 활동의 지대가 존재한다. 마음에 관한 알려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확신 한다: 무한한 영은 모든 창조체들에 대한 창조자의 마음의 완전 표현이다; 최극존재는 자신들의 창조자에 대한, 모든 창조체들의 마음의 진화하는 표현이다.

제 7 장. 우주 반영

9:7.1 (105.1) 공동 행위자는 정신적, 물질적,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동시적 인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주 실재성의 모든 차원들을 조화-협동시킬 수 있다. 이것이 우주 반영성의 현상, 그들이 초우주에 두루

배출함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원하는 지점에서 모든 이 정보와 지식을, 반영성에 의해, 초점화구현 되어 만물을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아는, 독특하고도 불가해한 힘이다. 반영성의 행동은 일곱 초우주들의 본부 세계들 각각에서 완전성으로 보인다. 그것은 또한 초우주들 모든 구역들에 두루 그리고 지역우주들의 경계선 안에서 작용한다. 반영성은 최종적으로 파라다이스에 초점화구현 된다.

9:7.2 (105.2) 반영성의 현상은, 초우주 본부 세계에서 그곳에 위치한 반영적 개인성들의 놀라운 행위들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창조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실존 위상의 가장 복잡한 상호-연관을 나타낸다. 영(靈) 계통들은 아들에게로, 물리적 에너지는 파라다이스에로, 마음은 셋째근원에게로 되돌아 추적할 수 있지만; 우주 반영성의 비범한 현상 안에는 셋 모두의 독특하고도 이례적인 통일이 있는데, 그로서 우주 통치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존재발생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먼 곳의 조건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연관되어 있다.

9:7.3 (105.3) 우리는 반영성의 기법 대부분을 이해한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많은 위상들이 있다. 우리는 공동 행위자가 마음 순환회로의 우주 중심이라는 것과, 그가 조화우주 마음의 조상이라는 것, 그리고 조화우주 마음이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절대 마음 중력의 지배 아래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조화우주 마음의 순환회로들이 알려진 모든 실존의 지적 차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안다; 그들은 우주 공간 보고서들을 담고 있으며, 확실하게 일곱 주(主) 영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셋째근원이며 중심 안에 집중한다.

9:7.4 (105.4) 유한한 조화우주 마음과 신성한 절대 마음 사이의 관계는 최극자의 체험적 마음 안에서 진화되어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시간의 여명기에 이 체험적 마음이 무한한 영에 의해 최극자에게 증여되었다고 배웠으며, 우리는 최극 마음의 활동을 가정함으로써만, 반영성 현상의 특성들이 설명될 수 있다고 추측한다. 만일 그 최극자가 반영성에 관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조화우주 의식의 뒤엎힌 활동행위들과 조금도 틀리지 않는 작용을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다.

9:7.5 (105.5) 반영성은 체험적 유한의 한계들 안에서 전지(全知)인 것처럼 나타나고, 그리고 최극존재의 현존-의식의 창발을 나타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일 이 추론이 사실이라면, 그 위상들 중 어떤 것에서든지 반영성의 활용이, 최극자의 의식과의 부분적인 접촉과 동등할 것이다.

제 8 장. 무한한 영의 개인성들

9:8.1 (105.6) 무한한 영은 자신의 힘들과 특권들 중 많은 부분을 그와 조화-협동하고 종속되는 개인성들 그리고 대리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총만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

9:8.2 (105.7) 무한한 영의 첫 번째 신(神)-창조하는 행위는 우주들에게 무한한 영을 분배하는 분배자들, 곧 파라다이스의 일곱 주(主) 영들의 실존으로써 개인성구현되었다, 이것은 삼위일체와는 별개로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는 어떤 계시되지 않은 관계적-연합으로 기능하고 있는 행위이다.

9:8.3 (106.1) 초우주의 본부에는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직접적인 대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일곱 창조계들 각각은 파라다이스의 주(主) 영들 중 하나에게 의존하는데, 그는

그 초우주의 수도에 위치한 일곱 반영 영들을 통해 활동한다.

9:8.4 (106.2) 무한한 영의 그 다음 그리고 계속되는 창조적 활동이 때로는 창조 영들의 생산 속에서 드러난다.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창조자 아들에게 부모가 될 때마다, 무한한 영은 모든 뒤 따르는 우주 체험에서, 그 창조자 아들의 가까운 연관-동료인 지역우주 창조 영에 대한 조상이 된다.

9:8.5 (106.3) 영원한 아들과 창조자 아들들 사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한한 영과 창조 영들, 창조자 아들의 지역우주 조화-협동자들 사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전체 창조에 대한 무한한 영의 그것은, 지역우주에 대한 창조 영의 그것과 같다.

9:8.6 (106.4) 셋째근원이며 중심은 일정한 물리적, 모론시아적, 그리고 영적 본성의 순환회로 감독자들과 함께, 사명활동하는 영들, 메신저들, 선생들, 재판관들, 조력자들, 그리고 충고자들의 광대한 대열들로서 대우주 안에 대표된다. 이 존재들 모두가 그 단어의 엄격한

의미에서, 개인성들은 아니다. 유한-창조체 다양성의 개인성은 다음과 같은 특성화되어 진다:

9:8.7 (106.5) 1. 주관적 자아-의식.

9:8.8 (106.6) 2. 아버지의 개인성 순환회로에 대한 객관적 응답.

9:8.9 (106.7) 창조자 개인성들과 창조체 개인성들이 존재하며, 기본적인 이 두 유형들 외에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개인성들이 있는데, 무한한 영에게 개인적이지만 창조체 존재들에게는 분별불가하게 개인적이 아니다. 이 셋째근원 개인성들은 아버지의 개인성 순환회로의 일부분이 아니다. 첫째근원 개인성과 셋째근원 개인성은 상호 접촉할 수 있다; 모든 개인성은 접촉할 수 있다.

9:8.10 (106.8) 아버지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 개인성을 증여한다. 우리는 단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추측할 수 있을 뿐;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셋째근원이 왜 비(非)-아버지 개인성을 증여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무한한 영이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방법으로 그리고 영원한 아들과의 창조적 연대 속에서 그 자신을 위해 이렇게 한다. 또한

무한한 영은 첫째 근원 개인성의 증여에서 아버지를 위해 활동할 수 있다.

9:8.11 (106.9) 셋째근원 개인성들에는 수많은 유형들이 있다. 무한한 영은 일정한 힘 지도자들과 같이, 아버지의 개인성 순환회로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집단들에게, 셋째근원 개인성을 증여한다. 마찬가지로 무한한 영은, 순환회로를 이루는 아버지의 창조체들에 대한 비할 데 없는 그들의 관계 안에서 그들 자신에 의한 등급 안에서, 창조 영들과 같은, 수많은 집단의 존재들을 개인성들로 간주한다.

9:8.12 (106.10) 첫째근원과 셋째근원 개인성들 모두는, 개인성의 개념과 연관되는 사람의 모든 것 그리고 그 보다 더 많이 자질로서 부여받는다; 그들은 기억, 이성, 판단, 창조적 상상력, 관념 관계적-연합, 결정, 선택, 그리고 필사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추가적 지성의 힘을 포용하고 있는 마음을 가진다. 소수의 예외들이 있지만 너희에게 계시된 계층들은 형태와 분명한 개별존재성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실제 존재들이다. 그들 대부분은 영 실존의 모든 계층들의 눈에 보인다.

9:8.13 (107.1) 너희도 현재의 물질적 눈의 제한된 시야로부터 너희가 해방되자마자 비교적 낮은 계층들에 해당하는 너희 영적 연관-동료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영적 사물들의 실체에 대한 그 확대된 감수성과 함께 모론시아 형태를 자질로서 부여받는다.

9:8.14 (107.2)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기능적 가족은, 이 글들 안에서 계시된 것처럼, 세 개의 거대한 집단으로 나뉜다:

9:8.15 (107.3) I. 최극 영. 다른 것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계층들을 포용하는 합성 기원의 집단:

9:8.16 (107.4) 1. 파라다이스의 일곱 주(主) 영.

9:8.17 (107.5) 2. 초우주들의 반영 영.

9:8.18 (107.6) 3. 지역우주의 창조 영.

9:8.19 (107.7) II. 힘 지도자. 모든 조직된 공간 전체에 두루 기능하는 통제의 창조체들과 대리자들의 집단.

9:8.20 (107.8) III. 무한한 영의 개인성. 그들 중 일부가 의지 창조체들로서 독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칭이 이들 존재들이 셋째근원 개인성들이라는 것을 꼭 그렇게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보통 세 개의 대분류로 나뉜다:

9:8.21 (107.9) 1. 무한한 영의 높은 개인성.

9:8.22 (107.10) 2. 공간의 메신저 무리.

9:8.23 (107.11) 3. 시간의 사명활동 영.

9:8.24 (107.12) 이 집단들은 파라다이스에서, 중앙 또는 거주 우주에서, 초우주들에서 봉사하며, 그들은 지역우주 안에서, 심지어 별자리들과 체계들 그리고 행성들에 이르기까지 기능하는 계층들을 포용한다.

9:8.25 (107.13) 신성하고 무한한 영의 광대한 가족에 속하는 영 개인성들은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들의 모든 지능 창조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의 사명활동으로 봉사하는 일에 언제까지나 바치어져 있다. 이들 영 존재들은 필사 사람이 혼돈으로부터 영광을 향하여 오르는, 살아있는 사다리를 이루고 있다.

9:8.26 (107.14) [무한한 영의 본성과 일을 서술하기 위하여 옛적으로 늘 계신이들에 의해 임명된 유버사의 신성한 조연자에 의해 유란시아에 계시되었음]

제 10 편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10:0.1 (108.1) 영원한 신(神)들의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개인성 절대론으로부터의 아버지의 벗어남을 촉진시킨다. 삼위일체는 하느님의 무한 개인적 의지의 무제한적 표현을 신(神)의 절대성과 완전하게 연관시킨다. 영원한 아들과 신성한 기원의 다양한 아들들은, 공동 행위자 그리고 그의 우주 자녀들과 함께, 시원성, 완전, 무변, 영원, 보편성, 절대성, 그리고 무한성 안에 선천적인, 달리 말하면 한계들로부터의 아버지의 해방을 실질적으로 제공한다.

10:0.2 (108.2)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신(神)의 영원한 본성에 대한 충분한 표현과 완전한 계시를 효력적으로 제공한다. 삼위일체 고정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신성한 공의(公義)에 대한 충분하고도 완전한 계시를 제공한다. 삼위일체는 신(神) 합일이며, 이 합일은, 기원적이고 조화-협동적이며 공존하는 세 개인성들,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하느님 그리고 영 하느님이 신성한 하나를 이루는 절대적 기초 위에 영원히 놓여 있다.

영원의 순환계에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끝없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우주 관련사들에 있어서 오직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필연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이다. 나는 삼위일체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을 바라볼 때, 나는 그 외의 어떤 것도 우주들의 우주 전체 안에서 필연적이어야만 하는 것을 찾을 수 없다. 되돌아보거나 앞을 내다 볼 때, 현재의 주(主)우주 는 삼위일체 없이 생각될 수 없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주어졌기에, 우리는 만물을 행하는 교차적 또는 복합적 방법에 이르기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영의 삼위일체 없이는, 신(神)의 절대적 하나 됨 앞에서 무한자가 어떻게 삼중(三重)의 그리고 조화-협동의 개인성구현을 성취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창조에 대한 어떤 다른 개념도, 신(神)의 삼중적 개인성구현 안에 선천적으로 있는 의지적 해방의 충만함과 짝을 이루고 있는, 신(神) 합일 안에 선천적인 절대성의 완벽함에 대한 삼위일체 표준들에 들어맞지 않는다.

제 1 장.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자아-분배

10:1.1 (108.4) 영원 안에서 되돌아가면, 아버지가 심오한 자아-분배의 원칙을 개시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우주 아버지의 자아없는, 사랑하고 있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본성 안에는, 그가 증여하거나 위임하기에 불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발견한 오직 그 힘들과 그 권한에 대해서만 자신을 그 실행으로 남겨두는 그 어떤 것들이 선천적으로 있다.

10:1.2 (108.5) 우주 아버지는 모든 다른 창조자 또는 창조체에게 증여될 수 있었던 자신의 모든 부분을 처음부터 자신으로부터 벗어버렸다. 그는 위임될 수 있는 모든 힘과 모든 권한을 자신의 신성한 아들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연관된 지능체들에게 위임해 왔다. 그는 건네줄 수 있는 행정-관리적 권한의 모든 특권을, 그의 주권자 아들들에게, 그들의 각 우주들 안으로, 실재적으로 건네주었다. 지역우주의 관련사들에 있어서, 그는 영원한 아들이 기원적인 그리고 중앙에 있는 우주 안에서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권자 창조자 아들 각각을 완전하고 유능하며 권위 있게 만들어 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 그리고 자기 속성 전체를, 모든 방법으로,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그의 중앙

내주를 제외한 모든 우주에서 그가 자신을 벗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것을, 개인성 소유의 존엄성과 거룩함과 함께 내어주었고, 실재적으로 증여하여 왔다.

10:1.3 (109.1) 신성한 개인성은 자아-중심적이 아니다; 자아-분배와 개인성의 공유는 신성한 자유의지 자아신분을 특징짓는다. 창조체들은 다른 개인적 창조체들과 관계적-연합을 갈망한다; 창조자들은 그들의 우주 자녀들과 신성을 공유하려고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 무한자의 개인성은, 두 조화-협동 개인성, 영원한 아들과 공동 행위자와 함께 존재의 실체성과 자아의 동등성을 공유하는, 우주 아버지로서 드러난다.

10:1.4 (109.2) 아버지의 개인성과 신성한 속성들에 관한 지식을 위하여 우리는 항상 영원한 아들의 계시에 의존할 것인데, 왜냐하면 창조의 공동 행위가 실행되었을 때, 신(神)의 셋째 개인이 개인성 실존으로 떠오르고 자신의 신성한 부모들에 대한 병합된 개념들을 실행하였을 때, 아버지는 분별불가 개인성으로서, 존재하기를 중단하였기 때문이다. 공동 행위자가 존재로 나오는 것과 함께 그리고 창조의 중앙 핵심의 물질화는, 어떤 영원한 변화들이

발생되었다. 하느님은 자신의 영원한 아들에게 절대적 개인성으로서 자신을 주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무한성의 개인성”을 자신의 오직하나-낳은 아들에게 증여한 반면, 그 둘 모두는 무한한 영에게 그들의 영원한 연합의 “공동 개인성”을 증여하였다.

10:1.5 (109.3) 유한 마음의 개념을 벗어나는 이들 그리고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아들 안에서 우주적으로 계시되고, 아들과 함께 무한한 영 안에서 우주적으로 활동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인간 창조체가 하느님의 무한한 아버지-개인성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10:1.6 (109.4)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이 진화하는 세계들을 방문하고 때로는 심지어 필사자 육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증여들이 필사 사람으로 하여금 신성한 개인성의 본성과 성격 중 일부를 실재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 행성 구체들의 창조체들은 이 파라다이스 아들의 증여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영에 관한 확실하고도 믿을만한 정보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제 2 장. 신(神) 개인성구현

10:2.1 (109.5) 삼위일체화구현 기법에 의해, 아버지는 그
분별불가 영 개인성을 벗어버리어 그것이 아들이지만,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는 스스로 바로 이 아들의 아버지가
되며 그리하여 뒤이어 일어나는 지능적 의지 창조체들의
창조되는, 결국 생겨나게 되는, 또는 그 밖에
개인성구현되는 유형들의 신성한 아버지가 되는 무제한적
수용능력의 자신을 그렇게 소유한다. 절대적이고
분별불가의 개인성으로서 아버지는, 오직 아들로써 또는
아들과 함께 기능할 수 있지만, 개인적 아버지로서 그는
지능적 의지 창조체들의 서로 다른 차원의 다양한
무리에게 개인성을 계속 증여한다,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
자녀 가족과 사랑하는 관계적-연합의 개인적 관계를
언제까지나 유지한다.

10:2.2 (109.6) 아버지가 자신의 충만함을 자기 아들의
개인성에게 증여한 후에, 자아-증여의 이 행위가 완성되고
완전할 때, 그리고 아버지-아들 연합 안에 그렇게 실존하는
무한 힘과 본성의, 영원한 동반자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다른 존재를 여전히 이루는 그 본질특성들과 속성들을
공동으로 증여한다; 그리고 이 공동 개인성, 무한한 영은
신(神)의 실존적 개인성구현을 완성한다.

10:2.3 (110.1) 아들은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에 필요불가결하다.

영은 둘째와 셋째 개인의 형제우애관계에 필요불가결하다. 세 개인이 사회집단의 최소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공동 행위자의 필연성을 믿게 하는 많은 전체 이유들 중 가장 작은 것이다.

10:2.4 (110.2)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무한한 아버지-개인성, 무제한적 근원 개인성이다. 영원한 아들은 분별불가 개인성-절대, 하느님의 개인적 본성의 완전한 계시로서 모든 시간과 영원에 두루 계시는 신성한 존재이다. 무한한 영은 공동 개인성, 영속하는 아버지-아들 연합의 독특한 개인적 결과이다.

10:2.5 (110.3)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개인성은 영원한 아들의 절대 개인성을 뺀 무한성의 개인성이다.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개인성은 해방된 아버지-개인성과 절대 아들-개인성의 연합의 초(超)부가적 결과이다.

10:2.6 (110.4)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은 독특한 개인성들이다; 아무도 중복되지 않는다; 각자가 기원적이다; 모두 연합되어 있다.

10:2.7 (110.5) 영원한 아들은 신성한 개인성 관계성의 총만함, 아버지와 아들관계와 영에 대한 아버지 되심 둘 모두와 그리고 아버지-조상과 영-연관으로의 둘 모두의 신성한 평등성에 대한 의식(意識)을 홀로 체험한다. 아버지는 자신과 동등한 아들을 가지는 체험을 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어떤 조상되는 선조도 없음을 안다. 영원한 아들은 아들관계의 체험, 개인성 선조에 대한 인식을 가지며, 동시에 아들은 무한한 영에 대해 공동 부모가 됨을 의식한다. 무한한 영은 이중적 개인성 선조를 인식한다, 그러나 조화-협동하는 신(神) 개인성에 대해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神) 개인성구현의 실존적 주기는 영과 함께 완벽성을 달성하며;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1차 개인성들은 체험적이고 숫자로서 일곱이다.

10:2.8 (110.6) 나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 기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삼위일체를 합일된 신(神)으로 알고 있다; 또한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그들의 분명한 개인적 능력 안에서 존재하고 활동함을 안다. 나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화 안에서 그들의 행위를 조화-협동시키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이 일곱 개의 다른 단수적 그리고 복수적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이들 일곱 관계적-연합이 그러한 어떤 신성 조합을 위한 가능성을 다 소모함으로서, 우주의 실체들이 가치, 의미 그리고 개인성의 일곱 변화들로서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은 필연적이다.

제 3 장. 신(神)의 세 개인

10:3.1 (110.7) 오직 하나의 신(神)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神)의 세 가지 긍정적이고 신성한 개인성구현들이 존재한다. 신성한 조절자들을 받는 사람의 자질에 관하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상대로 필사 사람을 만들자.” 복수(複數)의 신(神)의 활동들과 행위들에 대해 유란시아의 기록들에 두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이것은 세 근원이며 중심들의 실존과 작업을 인식함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10:3.2 (110.8) 우리는 아들과 영이 삼위일체 관계적-연합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동일하고 동등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배웠다. 영원 안에서 그리고 신(神)들로서 그들은 틀림없이 행하지만, 시간 안에서 그리고 개인성들로서는 그들이 매우 다양한 본성의 관계성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파라다이스로부터 우주들을 바라볼 때, 이 관계성들은 매우 비슷하게 보이지만, 공간의 권역들로부터 바라보았을 때에는, 그들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10:3.3 (111.1) 신성한 아들들은 정말로 "하느님의 말씀"이지만, 영의 자녀들은 정말로 "하느님의 활동"이다. 하느님은 아들을 통하여 그리고 아들과 함께 말씀하고 무한한 영을 통하여 활동하는 반면, 모든 우주 활동에 있어서 아들과 영은 절묘하게 형제우애를 가지며, 영광을 받고 신성하게 존중을 받는 공동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을 갖는 동등한 두 형제로서 일한다.

10:3.4 (111.2)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본성에서 분명하게 동등하고 존재에서 조화-협동을 이루지만, 그들의 우주 행위에 있어서는 명백한 차이들이 있으며, 홀로 활동할 때에는, 신(神)의 각 개인이 절대성 안에서 분명하게 제한된다.

10:3.5 (111.3) 우주 아버지는, 아들과 영을 구성하는 개인성, 힘, 그리고 속성들에 대한 자신의 자아-의지적 벗어버림 이전에, 분별불가적, 절대적, 무한한 신(神)이었던 것으로 (철학적으로 고려할 때) 보인다. 그러나 아들이 없는

그러한 이론적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어떤 말의 의미에서 보더라도 우주 아버지라고 간주될 수 없다; 아버지신분은 아들관계 없이는 실체가 아니다. 더욱이, 전체적인 감각에 있어서 절대적이어야만 하는 아버지는 영원하게 먼 어떤 순간에 홀로 존재했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외롭게 실존한 적이 결코 없으며; 아들과 영 둘 모두 아버지와 함께 공동영원이다.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항상 기원 아들의 영원한 아버지이었고,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그러할 것이며 아들과 함께 무한한 영의 영원한 선조였고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그러할 것이다.

10:3.6 (111.4) 우리는 아버지가 절대적 아버지신분과 절대적 의지를 제외한 절대성의 모든 직접적 현시활동들을 벗어버린 것을 관찰한다. 우리는 의지가 양도할 수 없는 아버지의 속성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오직 그가 의지를 벗지 않았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의지의 무한성은 첫째근원이며 중심 안에 영원하게 선천적인 것이 분명하다.

10:3.7 (111.5) 개인성의 절대성을 영원한 아들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우주 아버지는 개인성 절대론의 족쇄로부터

벗어났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는 그로 하여금 개인성-절대자로서 홀로 활동하는 것을 언제까지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공존하는 신(神)—공동 행위자—의 최종적 개인성구현으로, 절대에서의 신(神) 기능의 전체성과 관련된, 세 신성한 개인성들의 불가결한 삼위일체로서의 상호의존이 잇따라 일어난다.

10:3.8 (111.6) 하느님은 우주들의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개인성들의 아버지-절대자이다. 아버지는 행동에서의 해방에서는 개인적으로 절대이지만, 그러나 만들어진, 만들어지고 있는, 그리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 안에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제외하면 아버지는 전체 신(神)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절대가 아니다.

10:3.9 (111.7)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하보나 밖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적 우주들 안에서 기능 한다:

10:3.10 (111.8) 1. 창조자로서, 창조자 아들들, 그의 손자들을 통하여.

10:3.11 (111.9) 2. 통제자로서, 파라다이스의 중력 중심을 통하여.

10:3.12 (111.10) 3. 영으로서, 영원한 아들을 통하여.

10:3.13 (111.11) 4. 마음으로서, 공동 창조자를 통하여.

10:3.14 (111.12) 5. 아버지로서, 그는 자신의 개인성 순환회로를 통하여 모든 창조체들과 어버이의 접촉을 유지한다.

10:3.15 (111.13) 6. 한 개인으로서, 그는 자신의 배타적 단편으로—생각 조절자들에 의해 필사 사람 안에—창조에 두루 직접적으로 활동한다.

10:3.16 (111.14) 7. 전체 신(神)으로서, 그는 오직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 기능한다.

10:3.17 (112.1) 우주 아버지에 의한 관할권의 이 모든 양도와 위임은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자아-부과된 것이다. 모든-힘을 지니신 아버지는 우주 권한의 이들 한계들을 의도적으로 떠맡는다.

10:3.18 (112.2) 영원한 아들은, 하느님 단편들의 증여에서 그리고 다른 전(前)개인적 활동들을 제외하고, 모든 영적 관점에서 아버지와 하나로서 기능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들은 물질적 창조체들의 지적 활동이나 물질적 우주들의 에너지 활동, 그 어느 것으로도 밀접하게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절대일 때 아들은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오직 영적 우주의 권역 안에서만 기능한다.

10:3.19 (112.3) 무한한 영은 그의 모든 작용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우주적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융통성이 있다. 그는 마음, 물질 그리고 영의 구체들 안에서 수행한다. 공동 행위자는 아버지-아들 관계적-연합을 대표하지만, 그는 또한 자기 자신으로서 기능한다. 그는 물리적 중력, 영적 중력, 또는 개인성 순환회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지만, 모든 다른 우주 활동들 전체에 대체로 참여한다. 겉으로 보기에 세 실존적이고 절대적 중력 통제에 종속적이지만 반면에, 무한한 영은 세 개의 초(超)통제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삼중적 자질은, 절대성의 초(超)궁극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1차 기세와 에너지들의 현시활동조차도 초월하고 겉보기에 중성화 시키는 여러 방법에 종사되어 있다. 특정의 상황들에서 이 초(超)통제들은 조화우주 실체의 1차 현시활동까지도 절대적으로 초월한다.

제 4 장. 신(神)의 삼위일체 연합

10:4.1 (112.4) 모든 절대적 관계적-연합들 중에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첫 번째 삼원일체)는 개인적 신(神)의 배타적 관계적-연합으로서 독특하다. 하느님은 하느님에 관해서만 그리고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자들에게만 하느님으로서 기능하지만, 오직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만 그리고 우주 전체성과의 관련 안에서만 절대 신(神)으로 기능한다.

10:4.2 (112.5) 영원 신(神)은 완전하게 합일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神)의 완전하게 개별존재화된 세 개인들이 있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첫째근원이며 중심과 그의 영원한 조화-협동자들에 대한 그리고 나뉘지 않은 신(神)의 우주 기능들의 모든 신성한 합일에 대한 성격 특색들과 무한 힘들의 모든 다양성의 동시적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10:4.3 (112.6) 삼위일체는 비(非)개인적 수용능력 안에서의 무한 개인들 기능의 관계적-연합이지만 그러나 개인성의 위반은 아니다. 미숙한 예증이겠지만, 비(非)개인적이 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개인적 의지에

종속하는, 집합적 실존개체를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형성할 수 있다.

10:4.4 (112.7)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실제이다. 그것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의 신(神) 연합으로 존재한다; 그렇지만
아버지, 아들 또는 영, 또는 그들 중 어떤 둘도 이 바로
똑같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관련하여 기능할 수 있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은 비(非)-삼위일체 방법으로
협력할 수 있다, 그러나 세 신(神)들로서는 그렇지 않다.
개인들로서 그들은 그들이 선택하는 대로 협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삼위일체가 아니다.

10:4.5 (112.8) 무한한 영이 행하는 것은 공동 행위자의 기능임을
항상 기억하라. 아버지와 아들 모두는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그리고 그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로서의
셋이자 하나 안에서의 셋인, 그리고 둘로서의 하나이면서
둘을 위해 활동하는 하나인, 삼위일체 신비를 밝히려고
시도하는 것은 헛된 일일 것이다:

10:4.6 (112.9) 삼위일체는 너무나 전체 우주 관련사들에
관계되어 있으므로, 모든 고립된 조화우주 사건 또는
개인성 관계성의 전체성을 설명하려는 우리 시도들에서

반드시 계산에 넣어 고려해야만 한다. 삼위일체는 우주의 모든 차원들에서 기능하고, 필사 사람은 유한 차원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삼위일체로써의 삼위일체에 대한 유한 개념에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4.7 (113.1) 너희는 육체 속에 있는 한 필사자로서 너희의 개별적 깨우침에 따라 그리고 너희 마음과 혼의 반응과의 조화 속에서 삼위일체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삼위일체의 절대성을 매우 조금 알 수 있지만, 너희가 파라다이스를 향해 상승할 때 너희는, 비록 절대위는 아니지만, 삼위일체 최극위와 궁극위에서의, 계속적인 계시들과 예상치 못한 발견들 앞에 여러 차례 깜짝 놀라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제 5 장. 삼위일체의 기능

10:5.1 (113.2) 개인적 신(神)들은 속성들을 갖지만, 삼위일체가 속성들을 갖는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신성한 존재들의 이 관계적-연합은 공의(公義) 관리-행정, 전체성 태도, 조화-협동 행동, 그리고 조화우주 전반적-통제 등과 같은 기능들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이다. 이 기능들은 개인성 가치의 모든 살아있는 실체들에 관한 한,

활동적으로 최극, 궁극 그리고 (신(神)의 한계들 안에서) 절대이다.

10:5.2 (113.3)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기능들은 단순히 신성이라는 아버지의 외견적 자질 전체에, 아들과 영의 개인적 실존 안에 독특하게 있는 특화된 속성들을 더한 것이 아니다. 세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삼위일체 관계적-연합은, 우주적 계시, 행동 그리고 관리-행정을 위한 새로운 의미, 가치, 힘, 그리고 역량들의 진화, 결국 생겨남, 그리고 신(神)구현화를 가져온다. 살아있는 관계적-연합들, 인간 가족들, 사회 집단들, 또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단순한 산술적 합계에 의해 증강되는 것이 아니다, 집단 잠재는 구성요소가 되는 개별존재들의 속성들에 대한 단순한 합계를 항상 훨씬 뛰어넘는다.

10:5.3 (113.4) 삼위일체는 그 삼위일체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전체 우주를 향함에 따라서 독특한 태도를 유지한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의 기능들은 삼위일체의 우주 태도들에 대한 관계 속에서 가장 잘 고려될 수 있다. 그러한 태도들은 동시적이고 그리고 그 어떤 고립된 상황이나 사건과 관계하여 다중적일 수 있다:

10:5.4 (113.5) 1. 유한자를 향한 태도. 삼위일체의 최대 자아-제한은 유한세계를 향한 태도이다. 삼위일체는 개인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의 배타적 개인성구현인 최극존재도 아니다, 그러나 최극자는 유한 창조체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 삼위일체의 힘-개인성 초점화구현에 가장 접근되어 있다. 따라서 유한세계와 관계하는 삼위일체는 때로 최극위의 삼위일체로 이야기된다.

10:5.5 (113.6) 2. 아(亞)절대를 향한 태도.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유한보다는 높지만 절대보다는 낮은 차원들과 관련을 가지며, 이 관계는 때로 궁극위의 삼위일체라고 일컬어진다. 궁극자뿐만 아니라 최극자도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전적으로 대표하지는 않지만, 분별화되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들 각각의 차원들에 대하여, 그 각각은 체험적-힘 발달의 전(前)개인적 시대들 동안 삼위일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10:5.6 (113.7) 3.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절대적 태도는 절대 실존(實在)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전체 신(神)의 행동 안에서 극에 달한다.

10:5.7 (113.8) 삼위일체 무한자는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모든 삼원일체(三元一體) 관계들에 대한 조화-협동 행동—비(非)신(神)화 된 것뿐만 아니라 신(神)화 된 것—을 포함하며 그러므로 개인성들이 이해하기에 매우 어렵다. 삼위일체를 무한으로서 깊이 사색함에 있어서, 일곱 삼원일체(三元一體)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납득하기에 특별히 어려운 것들을 피할 수 있고, 어떤 모순들은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10:5.8 (114.1) 그러나 나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총만한 진리와 영원한 의의(意義) 그리고 무한 완전의 세 존재들의 결코-끝남이 없는 상호-연관의 본성을, 내가 제한된 인간 마음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

제 6 장. 삼위일체 고정아들

10:6.1 (114.2) 모든 법칙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으로부터 기원된다; 그는 법칙이다. 영적 법칙에 대한 관리-행정은 둘째근원이며 중심에게 부여되어 있다. 법칙의 계시, 신성한 법령들에 대한 공표와 해석은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기능이다. 법칙의 적용, 공의(公義)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지역 안에서 일어나며 특정 삼위일체 아들들에 의해 수행된다.

10:6.2 (114.3) 공의(公義)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우주적 주권 안에 선천적이지만, 선함, 자비 그리고 진리는, 그 신(神) 연합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신성한 개인성들의 우주 사명활동이다. 공의(公義)는 아버지나 아들 또는 영의 태도가 아니다. 공의(公義)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사명활동에 대한 이들 개인성들의 삼위일체 태도이다. 파라다이스 신(神)들 중 아무도 공의(公義)의 관리-행정을 돌보지 않는다. 공의(公義)는 결코 개인적 태도가 아니며; 그것은 항상 복수(複數) 기능이다.

10:6.3 (114.4) 증거, 공평성(자비로 조화된 공의)의 기초는,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개인성들, 모든 창조의 지능 존재들의 모든 영역들과 그리고 마음들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 대표자에 의해 제공된다.

10:6.4 (114.5) 심판, 무한한 영의 개인성들에 의해 제출된 증거에 따른 공의(公義)의 최종 적용은, 삼위일체 고정아들들, 연합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영의 삼위일체 본성을 함께하는 존재들의 업무이다.

10:6.5 (114.6) 삼위일체 아들들의 이 집단은 다음의 개인성들을 포용한다:

10:6.6 (114.7) 1. 최극위의 삼위일체화된 비밀.

10:6.7 (114.8) 2. 영원으로 늘 계신이.

10:6.8 (114.9) 3. 옛적으로 늘 계신이.

10:6.9 (114.10) 4. 완전으로 늘 계신이.

10:6.10 (114.11) 5.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

10:6.11 (114.12) 6. 연합으로 늘 계신이.

10:6.12 (114.13) 7. 충심으로 늘 계신이.

10:6.13 (114.14) 8. 지혜의 완전자.

10:6.14 (114.15) 9. 신성한 조연자.

10:6.15 (114.16) 10 우주 검열자.

10:6.16 (114.17) 우리는 삼위일체로서 기능하는 세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자녀들이며, 내가 이 집단의 10번째 계층에 속할 수 있게 되었기에, 우주 검열자이다. 이들 계층들은

우주적 감각에서는 삼위일체의 태도의 대표자는 아니다; 그들은 집행적 심판—공의—의 권역들 안에서만 신(神)의 이 집단적 태도를 나타낸다. 그들은 그들이 배정받은 엄밀한 업무를 위하여 삼위일체에 의해 특별히 예정되었으며, 그들이 이것을 위하여 개인성구현된 그 기능들 안에서만 삼위일체를 나타낸다.

10:6.17 (115.1)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 그들의 삼위일체-기원 연관들은 일곱 초우주들에게 최극 공평성의 정당한 심판을 나누어준다. 중앙우주 안에서는 그러한 기능들이 이론적으로만 존재한다; 거기에서 공평함은 완전 안에서 자아-명백하며 그리고 하보나 완전은 부조화의 모든 가능성을 배제한다.

10:6.18 (115.2) 공의(公義)는 정의로움에 대한 집단적 생각이다; 자비는 그것의 개인적 표현이다. 자비는 사랑의 태도이다; 정확은 법 실행의 특징이다; 신성한 심판은 공정성의 마음이며, 삼위일체의 공의(公義)에 항상 순응하고, 하느님의 신성한 사랑을 항상 성취한다. 온전하게 인식되고 완벽하게 납득되었을 때, 삼위일체의 의로운 공의(公義)와 우주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은 일치한다.

그러나 사람은 신성한 공의(公義)에 대한 그러한 충분한 납득을 가지지 못한다. 그리하여 삼위일체 안에서, 사람이 그것을 보려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의 체험적 우주에서의 사랑과 법칙의 사명활동을 조화-협동하기 위하여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의 개인성들이 조절되고 있다.

제 7 장. 최극위의 전반적-통제

10:7.1 (115.3) 신(神)의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개인은 서로 동등하고, 그들은 하나이다. “우리 주님 하느님은 한 하느님이다.” 영원한 신(神)들의 신성한 삼위일체 안에는 목적의 완전성과 집행의 하나 됨이 존재한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공동 행위자는 정말로 그리고 신성하게 하나이다. 진리 가운데에는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며, 나 외에는 어떤 하느님도 없다.”

10:7.2 (115.4) 유한 차원에서 필사자들에게 사물들이 나타날 때,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최극존재와 마찬가지로, 오직 전체—전체 행성, 전체 우주, 전체 초우주, 전체 대우주—와 관련된다. 이 전체성 태도는 삼위일체가

신(神)의 전체이고 그리고 많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존재한다.

10:7.3 (115.5) 최극존재는 유한 우주들 안에서 기능하는 삼위일체보다는 낮은 그리고 어딘가 다른 어떤 존재이지만; 일정한 한계들 안에서 그리고 미완성 힘-개인성구현의 현재 시대 동안, 이 진화 신(神)은 최극위의 삼위일체의 태도를 반영하려고 나타난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최극존재와는 개인적으로 기능하지 않지만, 현재 우주 시대 동안 그들은 삼위일체로서 그와 함께 협동한다. 우리는 그들이 궁극자에 대하여 비슷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납득한다. 우리는 그가 최종적으로 진화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파라다이스 신(神)들과 최극자 하느님 사이의 개인적 관계에 대하여 종종 추측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알지 못한다.

10:7.4 (115.6) 우리는 전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최극위의 전반적-통제를 발견하지 못한다. 더욱이 이 예측 불가능성은, 틀림없이 최극자의 미완성의 표식이자 그리고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대한 유한 반응의 미완성에 속하는, 어떤 발전의 미완성에 의하여 특징되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10:7.5 (115.7) 필사자 마음은 수많은 것들—비극적인 물리적 사건들, 무시무시한 우연한 현상들, 무서운 재난들, 고통스러운 질병들, 그리고 세계적인 재난들—을 즉각 생각하고는 그러한 재앙이 최극존재의 이 있음직한 기능의 알려지지 않은 책략과 상관관계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질문할 수 있다. 분명히 말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실제로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어렵고도 다소 신비스러운 상황들이 항상 우주들의 복지와 진보를 위해 일어남을 관찰한다. 실존의 환경들과 삶의 설명할 수 없는 변천들은 모두 최극자의 기능과 삼위일체의 전반적-통제에 의해, 높은 가치의 의미심장한 원형틀 속으로 서로 엮어지는 것 같다.

10:7.6 (116.1) 하느님의 한 아들로써 너희는 하느님 아버지의 모든 활동들 안에서 사랑의 개인적 태도를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우주 활동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공간의 진화 세계들에 있는 개별 필사자의 선(善)을 초래하는지를 항상 납득할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영원의 진보에 있어서, 삼위일체의 활동들은 전적으로 의미심장하고 신중하게 계시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시간의 창조체들에게 항상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제 8 장. 유한을 넘어서는 삼위일체

10:8.1 (116.2)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 관계하는 많은 진리들과 사실들은 유한을 초월하는 기능을 인식함으로써만 부분적으로라도 이해될 수 있다.

10:8.2 (116.3) 궁극위 삼위일체의 기능들을 논의하는 일은 권장할만하지 못하겠지만, 궁극자 하느님이 초월자들에 의해 이해되는 삼위일체 현시활동이라는 사실은 밝혀도 된다. 우리는 주(主)우주 의 통일이 궁극자의 결국 생겨나고 있는 활동이며 전부는 아니지만, 아마도 일정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아(亞)절대 전반적-통제의 위상에 대한 반영이라고 믿으려한다. 궁극자는, 단지 최극자가 유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삼위일체를 부분적으로 그렇게 대변한다는 감각에서는, 아(亞)절대 와의 관계에서 분별화된 삼위일체 현시활동이다.

10:8.3 (116.4)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은, 어떤 감각에 있어서는, 전체 신(神)의 구성요소 개인성들이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의 그들의

연합과 삼위일체의 절대적 기능은 전체 신(神)의 기능과 동등하다. 그리고 그러한 신(神)의 완성은 유한과 아(亞)절대 둘 모두를 초월한다.

10:8.4 (116.5) 파라다이스 신(神)들 중 어느 한 개인도 실재적으로 전체 신(神) 잠재를 채우지 못하는 반면, 셋 전체가 집단적으로 그렇게 한다. 세 무한 개인들은 전체 신(神)-신(神) 절대자—의 전(前)개인적 그리고 실존적 잠재를 활성화하는데 요구되는 최소 숫자의 존재들인 것처럼 보인다.

10:8.5 (116.6) 우리는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을 개인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나는 신(神) 절대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나는 아버지 하느님을 사랑하고 경배한다; 나는 신(神) 절대자를 존중하고 명예를 드린다.

10:8.6 (116.7) 나는 영원 안에서 최종자가 결국에는 신(神) 절대자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어떤 존재들의 집단이 가르쳤던 한 우주에 머문 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최종자의 미래를 싸 숨기는 이런 신비의 해결책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10:8.7 (116.8) 최종의 무리단은, 다른 자들 중에, 하느님의 뜻에 맞는 모든 것 안에서 완전을 달성한 시간과 공간의 그 필사자들을 포용한다. 창조체들로서 그리고 창조체 수용능력의 한계 안에서 그들은 하느님을 충분히 그리고 참되게 안다. 하느님을 모든 창조체들의 아버지로 그렇게 발견하면, 이 최종자는 언젠가 반드시 초(超)유한 아버지를 향한 탐구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탐구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궁극적 속성들과 성격의 아(亞)절대 본성파악을 포함한다. 영원이 그러한 달성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드러내겠지만, 그러나 만일 최종자가 이 신성의 궁극을 파악하더라도 그들이 아마 절대 신(神)의 초(超)궁극 차원들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10:8.8 (116.9) 최종자가 신(神) 절대자를 부분적으로 달성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되더라도, 영원들의 영원 안에는 우주 절대자에 대한 문제가 상승하는 그리고 진보하는 최종자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흥미를 돋우고 어리둥절하게 하며 당황하게 하고 도전을 걸 것인데, 이는 우주 절대자의 조화우주 관계들의 불가해성(不可解性)이 물질적 우주들 그리고 그들의 영적 관리-행정이 계속

확대됨에 비례하여 성장하는 경향이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이다.

10:8.9 (117.1) 오직 무한만이 아버지-무한자를 드러낼 수 있다.

10:8.10 (117.2) [유버사에 있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로부터 권한을
받아 활동하는 우주 검열자에 의해 후원되었음]

제 11 편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섬

11:0.1 (118.1) 파라다이스는 우주들의 우주의 영원한 중심이며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 그리고 그들의
신성한 조화-협동자들 그리고 연관-동료들이 거주하는
장소이다. 이 중앙 섬은 주(主)우주 전체 안에서 조화우주
실체 중 가장 거대한, 조직된 몸체이다. 파라다이스는
물질적 구체일 뿐만 아니라 영적 거주지이다. 우주
아버지의 모든 지능적 창조는 물질적 거주지들 위에 있다;
따라서 절대 통제 중심 역시 말 그대로 물질적이다. 그리고
또한 영 사물들과 영적 존재들이 실제임을 반복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1:0.2 (118.2) 파라다이스의 물질적 아름다움은 그 물리적
완전의 장엄함에 있다; 하느님 섬의 장관은 거기에

거주하는 존재들의 화려한 지적 업적들과 마음 발달 안에서 전시되고 있다; 중앙 섬의 영광은 신성한 영 개인성—생명의 빛—의 무한 자질 안에서 내보여 지고 있다. 그러나 영적(靈的) 아름다움의 깊이와 이 장엄한 총체의 경이로움은 물질적 창조체들의 유한 마음의 이해력을 철저히 넘어선다. 신성한 거주지의 영광과 영적 광채는 필사자의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영원으로부터 있다; 빛과 생명의 이 핵이 되는 섬의 기원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록도 없고 전통도 없다.

제 1 장. 신성한 거처

11:1.1 (118.3) 파라다이스는 우주적 영역들에 대한 관리-행정에서 많은 목적들을 제공하지만, 창조체 존재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1차적으로 신(神)의 거주 장소로 존재한다. 우주 아버지의 개인적 현존은, 거의 둥글지만 구형(球形)은 아닌 이곳의 위쪽 면의 정 중앙, 신(神)들의 주거지에 거주하신다. 우주 아버지의 이 파라다이스 현존은 영원한 아들의 개인적 현존에 의해 즉각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러면서 그들 둘 모두는 무한한 영의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뒤덮여 있다.

11:1.2 (118.4) 하느님은 동일한 이 중앙 그리고 영원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해 왔으며 또 영속적으로 거주할 것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항상 그를 발견해 왔으며 또한 항상 그렇게 될 것이다. 우주 아버지는 조화우주적으로 초점화구현 되어있고, 영적으로 개인성구현되어 있으며, 우주들의 우주의 이 중심에 지리적으로 거주한다.

11:1.3 (118.5) 우리는 모두 우주 아버지를 발견하려고 추구하는 직선 진로를 알고 있다. 너희는 그것이 너희로부터 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의 광대함 때문에 신성한 거주지에 관해 많이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거대한 간격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은 마치 너희가 유란시아에 명확하게 그리고 지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인 뉴욕, 런던, 로마, 또는 싱가포르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그리고 실재로 하느님의 위치와 거주지를 안다. 만일 너희가 배와 지도 그리고 나침반을 갖고 있는 지능적인 항해자였다면, 너희는 쉽게 이 도시들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너희가 영적으로 분별화되는, 항해 시간과 수단을 가졌다면, 그리고 필요한 안내를 받았다면, 너희는 별이 총총한 지역들을 통하여 안쪽으로 계속 여행하면서 마침내

너희가 우주 아버지의 영적 영광이 빛나는 한 중앙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이 우주에서 저 우주로 그리고 이 순환회로부터 저 순환회로를 통하여 선도(先導)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여행을 위한 모든 필수품들이 마련되면, 너희는 만물의 중앙에서 하느님의 개인적 현존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마치 너희 자신의 행성에서 멀리 있는 도시들을 찾을 수 있는 것과 아주 똑 같다. 너희가 그러한 도시들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실체성이니 혹은 실재적 실존(實在)를 결코 반증할 수 없다. 우주 창조체들 중 너무나 적은 숫자가 파라다이스에 있는 하느님을 발견했다는 것이, 만물의 중심에 있는 그의 실존의 실체성이나 혹은 그의 영적 개인의 실재성을 결코 반증할 수 없다.

11:1.4 (119.1) 아버지는 이 중앙 위치에서 항상 발견되어진다. 그가 움직였다면 우주적 대혼란이 일어났을 것인데, 왜냐하면 창조의 끝에서부터의 중력의 우주적 계통들이 이 거주지 중심에 있는 그의 안으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주들을 통하여 개인성 순환회로를 거슬러가거나 또는 아버지를 향하여 안쪽으로 여행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개인성들을 따라가든지; 우리가 파라다이스

아래쪽을 향하는 물질적 중력의 계통들을 추적하거나 또는 조화우주 기세의 굽이치는 주기를 따라가든지; 영원한 아들을 향하는 영적 중력을 계통을 추적하던지 혹은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안쪽을 향한 행렬을 따라가든지; 우리가 마음 순환회로들을 추적하든지 혹은 무한한 영으로부터 나오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상의 존재들을 따라가든지—이러한 관찰 중 그 어떤 것으로도 또는 그것들 모두에 의해, 우리는 아버지의 현존을 향해, 그의 중앙 거주지를 향해 직접적으로 인도된다. 이곳에 하느님 개인성이 있고 ,분명하게, 그리고 실재적으로 현존한다. 그리고 그의 무한 존재로부터 생명, 에너지 그리고 개인성의 노도와 같은 물줄기가 모든 우주들을 향해 흘러나간다.

제 2 장. 영원한 섬의 본성

11:2.1 (119.2) 너희가, 비록 너희 천문상의 위치, 항성 체계 안에서의 너희 공간 자리에서이지만, 식별할 수 있는 물질적 우주의 광대함을 일견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거대한 물질적 우주가 적절하고도 그럴만한 중심지, 물질적 영역과 살아있는 존재들의 모든 이 광대하고도 멀리 퍼지는 창조의 우주 통치자의 존엄성과 무한성과

균형이 맞는, 본부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 너희에게 명백하게 될 것이다.

11:2.2 (119.3) 형태에 있어서 파라다이스는 거주민이 사는 우주 천체들과는 다르다: 그것은 구형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타원체인데, 남북 지름이 동서 지름보다 6분의 1 더 길다. 중앙 섬은 본질적으로 평평하며, 윗면으로부터 아랫면까지의 길이는 동서 지름의 길이의 10분의 1이다.

11:2.3 (119.4) 그것의 고정 상태와 그 섬의 북쪽 끝에서의 기세-에너지의 더 큰 외향-압력과 관련하여 고려되는 규모에서의 이 차이들이, 주(主)우주 안에서 절대 방향을 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11:2.4 (119.5) 중앙 섬은 지리적으로 세 활동 권역들로 나뉘어 있다:

11:2.5 (119.6) 1. 상부 파라다이스.

11:2.6 (119.7) 2. 가장자리 파라다이스.

11:2.7 (119.8) 3. 하부 파라다이스.

11:2.8 (119.9) 우리는 개인성 활동에 사용되는 파라다이스의 표면을 상부 면으로, 그 반대 표면을 하부 면으로 이야기한다. 파라다이스의 가장자리는, 순전히 개인적이 아니거나 비(非)개인적인 활동에 대비한다. 삼위일체가 개인적, 곧 상부 평면을, 분별불가 절대자가 하부, 곧 미(未)개인적 평면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분별불가 절대자를 개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절대자의 기능적 공간 현존이 하부 파라다이스에 초점화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11:2.9 (120.1) 영원한 섬은 물질화의 단일 형태—실체의 고정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파라다이스의 이 순전한 내용물은 광대한 우주들의 우주 전체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공간 잠재력의 균일한 조직이다. 그것은 다른 우주들에서 여러 이름들로 받아들여졌다, 네바돈의 멜기세덱들은 오래 전부터 그것을 절대원(絕對元)이라고 불렀다. 이 파라다이스 근원 물질은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다; 그것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기원적인 비(非)영적 표현이다; 그것은 파라다이스이다; 파라다이스는 중복되어 있지 않다.

11:2.10 (120.2)

우리에게는 첫째근원이며 중심이 무한성한계로부터 자아-해방이라는 그의 기법의 한 부분으로서, 시간-공간 창조조차도, 가능한 하위-무한으로 만드는 방법으로서, 파라다이스 안에 조화우주 실체를 위한 모든 절대 잠재를 집중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주들의 우주가 이들 본질특성들을 드러낸다는 이유로, 파라다이스가 시간-공간 제한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파라다이스는 시간 없이 존재하고 그리고 공간 안에서는 위치가 없다.

11:2.11 (120.3)

개략적으로 말해서: 공간은 하부 파라다이스 바로 아래에서 기원되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은 상부 파라다이스 바로 위에서 기원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 섬의 시민들은 사건들의 시간 없는 순차를 충분히 인식하지만, 너희가 납득하는 바와 같이, 시간은 파라다이스 실존의 특색이 아니다. 움직임은 파라다이스에서 선천적이 아니다; 그것은 의지적이다. 그러나 거리의 개념은, 절대 거리라고 하더라도, 파라다이스에서 상대적 위치들에 적용될 수 있듯이, 그것은 매우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파라다이스는 비(非)공간적이다; 따라서 그 지역들은 절대이고 그러므로

필사자 마음의 개념을 뛰어넘는 많은 방법에서 봉사할 수 있다.

제 3 장. 상부 파라다이스

11:3.1 (120.4) 상부 파라다이스에는 광대한 세 활동구체들, 신(神) 현존, 최고 거룩 구체, 그리고 거룩 지대가 있다. 즉각적으로 신(神) 현존을 둘러싸고 있는 광대한 지역은 최고 거룩구체로 제외되어 있고 경배, 삼위일체화구현, 그리고 높은 영적 달성의 기능들을 위해 예비 되어있다. 이 지대에는 물질적 구조물도 없고 순수하게 지적인 창조계들도 없다; 그것들은 거기에 존재할 수 없다. 파라다이스의 최고 거룩구체의 신성한 본성과 아름다운 웅장함을 인간 마음에게 묘사하려고 시도하는 일이 나에게서 헛된 일이다. 이 영역은 전적으로 영적이고, 너희는 거의 전적으로 물질적이다. 순수하게 영적인 실체는, 순수하게 물질적인 존재에게 있어서, 외관상 실존하지 않는다.

11:3.2 (120.5) 최고거룩의 지대에 물리적 물질화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거룩한 땅에서 보낸 너희의 물질적인 날들에

대한 풍부한 기념품들이 있고 그리고 가장자리
파라다이스의 추억의 역사 지역들에는 여전히 더욱 많다.

11:3.3 (120.6) 거룩지대, 바깥에 놓인 혹은, 거주 지역은 일곱
개의 동심원 지대들로 나뉘어 있다. 파라다이스는 때로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이 그의 영원한
거주지이기 때문이며, 이 일곱 지대들은 종종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맨션들”이라고 불린다. 내부 혹은 첫 번째
지대는 파라다이스 시민들과 파라다이스에서 거주할
기회를 갖는 하보나의 원주민들이 차지한다. 그 다음 또는
두 번째 지대는 시간과 공간의 일곱 초우주들의
원주민들의 거주 지역이다. 이 두 번째 지대는 부분적으로
거대한 일곱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진화적 진보의
우주들로부터 흩어져 나오는 영 존재들과 상승하는
창조체들의 파라다이스 고향이다. 이 부문들 각각은 한
단일 초우주의 개인성들의 복지와 전진에 배타적으로
바치어져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은 현재 일곱
초우주들의 필요를 거의 무한하게 뛰어넘는다.

11:3.4 (121.1) 파라다이스의 일곱 부문들 각각은 10억 개의
영화롭게 된 개별 활동 집단들의 거점 본부에 알맞은

거주단위들로 나뉘어 있다. 이들 단위 1천개가 모여 한 부분을 이룬다. 10만개의 부문들이 한 회중과 같다. 1,000만개의 회중들이 한 집회를 구성한다. 10억 개의 집회들이 하나의 광(廣)단위를 만든다. 그리고 이 상승하는 계열들은 두 번째 광(廣)단위, 세 번째 광(廣)단위 식으로, 일곱 번째 광(廣)단위로 이어진다. 그리고 광(廣)단위 일곱 개가 모여 주(主)단위를 이루며, 일곱 주(主)단위들은 하나의 상급 단위를 이룬다; 그리고 이렇게 일곱으로 상승하는 계열들이 상급 단위, 초(超)상급 단위, 천상 단위, 초(超)천상 단위를 지나 최극 단위에 이른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가능한 모든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개념을 뛰어넘는 숫자인, 파라다이스에 있는 거주전용의 경이적인 숫자는 거룩한 땅의 배정된 지대 중 1%보다 훨씬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심지어는 영원한 미래의 시간이 이를 때까지 파라다이스 상승을 시작하지 않을 존재들을 위한, 안쪽을 향한 그들의 길을 가는 존재들을 위한 매우 풍부한 자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제 4 장. 가장자리 파라다이스

11:4.1 (121.2) 중앙 섬은 가장자리에서 갑자기 끝나지만, 그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종단 각도는 모든 둘러싸인 지역들 안에서 상대적으로 분간될 수 없다. 파라다이스의 가장자리 표면은, 부분적으로, 영 개인성의 다양한 집단들을 위한 도착과 출발장소들이 차지하고 있다. 비(非)충만-공간 지대들이 거의 가장자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모든 개인성 운송들은 이들 지역 안에서 파라다이스 땅으로 가도록 되어 있다. 운송 초(超)천사 또는 다른 유형의 공간 횡단자들은 상부 파라다이스는 물론 하부 파라다이스에도 접근할 수 없다.

11:4.2 (121.3) 일곱 주(主) 영들은, 아들의 빛나는 천체들과 하보나 세계들의 내부 순환회로 사이에 있는 공간 안에서 파라다이스를 회전하는, 영의 일곱 구체들 위에 힘과 권한이 있는 그들의 개인적 자리들을 갖지만, 그들은 파라다이스 가장자리에 기세-초점 본부를 유지한다. 여기에서 서서히 회전하는 일곱 최극 힘 지도자들의 현존은, 일곱 초우주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어떤 파라다이스 에너지들을 위한 일곱 섬광(閃光) 장소들의 위치를 표시한다.

11:4.3 (121.4) 이 가장자리 파라다이스에는 시간과 공간의 지역우주들에게 바쳐진, 창조자 아들들에게 배정된 거대한 역사적 그리고 예언적 전시 장소들이 있다. 거기에는 현재 설치되었거나 또는 예정된 이 역사 보호구역들이 정확하게 7조 개가 있지만, 이러한 준비들 전체는 그렇게 배정된 가장자리 지역 중 그 부분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광대한 이 예정지들이, 현재 알려졌고 그리고 거주민이 사는 일곱 초우주들의 경계선을 벗어나는 곳에 언젠가 있게 될 창조계에 속한다고 추론한다.

11:4.4 (121.5) 존재하는 우주들의 사용을 위하여 지정되어 온 파라다이스의 그 부분은 오직 1 내지 4% 만 사용되고 있으며, 반면에 이러한 활동에 배정된 그 장소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실재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적어도 1백만 배가 된다. 파라다이스는 거의 무한한 창조의 활동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할 만큼 크다.

11:4.5 (121.6) 그러나 파라다이스의 영광들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더 이상 시도하는 것은 헛될 것이다. 너희는 기다려야만 하며, 기다리는 동안 상승해야만 하는데, 이는

진실로 “우주 아버지가, 시간과 공간의 세계들에서
육신안의 생명을 생존한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눈이 본적이 없고, 귀가 들은 적이 없으며 그것이 필사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적도 없기 때문이다.”

제 5 장. 하부 파라다이스

11:5.1 (122.1) 하부 파라다이스에 관하여, 우리는 계시된 것만을
알며; 개인성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영
지능체들의 관련사들과 관계되는 것은 어떤 것도 없으며,
뿐만 아니라 신(神) 절대자도 거기에서 기능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물리적-에너지와 조화우주-기세
순환회로들이 하부 파라다이스에서 기원되었다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다:

11:5.2 (122.2) 1. 하부 파라다이스의 중앙 부분 중에서,
삼위일체의 위치 직접 밑은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계시되지 않은 무한성의 지대이다.

11:5.3 (122.3) 2. 이 지대는 이름없는 지역에 의해 즉각적으로
둘러싸여 있다.

11:5.4 (122.4) 3. 아래 표면의 외곽 여유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로 공간 잠재력과 기세-에너지로서 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광대한 타원형 기세 중심의 활동들은 어느 삼원일체(三元一體)의 알려진 기능들로 정체성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공간의 원초(원초)기세-충전이 이 지역 안에 초점화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중심은 세 동심 타원지대로 구성 된다: 가장 안쪽은 파라다이스 자체의 기세-에너지 활동들의 초점이다; 가장 바깥쪽은 분별불가 절대자의 기능들로 정체성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중간-지대의 공간 기능들에 관하여는 확신이 없다.

11:5.5 (122.5) 이 기세 중심의 내부 지대는, 물리적 우주의 가장 외부에 있는 경계선들을 향해 그 맥동들이 직접 흐르는 거대한 심장처럼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기세-에너지들을 지도하고 변경시키지만 그것들을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 원초(원초)기세의 실체 압력-현존은 남쪽 지역들에서보다 파라다이스 중심의 북쪽 끝에서 분명하게 더 크다; 이것은 균일하게 나타난 차이이다. 공간의 모체 기세는, 이 기세-에너지의 기초 형태의 분산과 관계되는 어떤 알려지지 않은 순환적 체계의 작동을 통하여,

남쪽에서 흘러 들어오고 북쪽에서 흘러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동-서 압력들 속에는 때때로 두드러진 차이들이 또한 있다. 이 지대로부터 발산되는 기세들은 관찰할 수 있는 물리적 중력에 응답하지는 않지만, 파라다이스 중력에는 항상 순응한다.

11:5.6 (122.6) 기세 중심의 중간-지대가 이 지역을 즉시 둘러싼다. 이 중간-지대는, 활동의 3순환주기를 통하여 그것이 확대하고 축소하는 것을 제외하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소한의 이들 맥동은 동-서 방향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은 북-남 방향으로 일어나며, 반면 가장 큰 동요는 모든 방향, 일반화된 확대와 축소로 일어난다. 이 중간-지역의 기능은 실제로 정체성이 확인된 적은 없었지만, 그것은 기세 중심의 내부와 외부 지대 사이에서 상호보답적인 조절로서 무언가를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중간-지대가 주(主)우주 의 연속적인 공간 차원들을 분리하는 중간-공간 또는 고요한 지대들의 통제 기능구조라고 믿는 자들이 많지만, 어떤 증거 또는 계시도 이것을 확인한 바 없다. 이 추론은 이 중간-지역이, 주(主)우주 의 비충만-공간 기능구조의 기능함과 관련된 어떤 방식이라는 지식에서 유래되고 있다.

11:5.7 (122.7) 외부 지대는 미(未)-정체성확인 공간 잠재의 세 동심원의 그리고 타원형 띠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활동적이다. 이 지역은 추측되지 않는 장소이며, 모든 방향에서 일곱 초우주의 최 외곽 경계 쪽으로 공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그 너머로 모든 외부공간의 거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권역들을 온통 뒤덮는, 발산의 중앙 순환회로점이다. 이 공간 현존은, 삼위일체로서 행동할 때 드러나지 않은 어떤 방식으로 무한 신(神)들의 의지와 명령들에 대해 간접적으로 응답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미(未)개인적이다. 이것은 분별불가 절대자의 공간 현존의 파라다이스 중심, 중앙 초점화구현인 것으로 믿어진다.

11:5.8 (123.1) 기세의 모든 형태들과 에너지의 모든 위상들은 순환회로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들은 우주에 두루 순회하고 확실한 경로들에 의해 돌아온다. 그러나 이들은 분별불가 절대자의 활성화된 지대의 방사물들과 함께, 나가거나 혹은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난다,-결코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 외부 지대는 거대한 비율의 오랜 세월에 해당하는 주기로 맥동한다. 이 중심의 공간-기세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10억년 보다 약간 더 오래

밖으로 나가며; 그 다음에는 그것과 비슷한 시간 안에 돌아온다. 그리고 이 중심의 공간-기세 현시활동들은 우주적이다; 그것들은 퍼질 수 있는 모든 공간에 두루 확장한다.

11:5.9 (123.2) 모든 물리적 기세, 에너지 그리고 물질은 하나이다. 모든 기세-에너지는 기원적으로 하부 파라다이스로부터 나왔으며 그것의 공간 순환회로를 완성한 후에는 결국에는 그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우주들의 우주의 에너지들과 물질적 조직들 모두가 그들의 현재 현상적 상태들 그대로 하부 파라다이스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공간은 물질과 전(前)물질의 여러 형태들의 발상지이다. 파라다이스 기세 중심의 외부 지대가 공간-에너지들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은 거기에서 기원되지 않는다. 공간은 기세나 에너지 또는 힘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대의 맥동들은 공간의 호흡 작용을 설명하지 않지만, 이 지대의 흡입과 발산은 공간의 20억 년 확대-축소 주기와 동조되어 있다.

제 6 장. 공간 호흡 작용

11:6.1 (123.3) 우리는 공간 호흡 작용의 실재적인 기능구조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다만 모든 공간이 교대로 축소하고 확대하는 것을 관찰할 뿐이다. 이 호흡 작용은 총만 공간의 수평적 확장과 파라다이스 위쪽 그리고 아래쪽의 광대한 공간 저장소들 속에 존재하는 비(非)총만 공간의 수직적 확장들 둘 모두에 영향을 준다. 이 공간 저장소들의 부피 윤곽들을 상상해 보려고 시도함에 있어서, 너희는 모래시계를 생각할 수 있다.

11:6.2 (123.4) 총만 공간에서의 수평적 확장의 우주들이 팽창할 때, 비총만 공간에서의 수직적 확장의 저장소들은, 거꾸로 축소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부 파라다이스 바로 아래에는 총만 공간과 비총만 공간의 합류점이 있다. 두 공간 유형들은 변질시키는 규정 통로들을 통해 흐르는데, 그곳에는 조화우주의 축소 그리고 확대 주기 안에서 총만 가능한 공간을 총만 불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진다.

11:6.3 (123.5) “비총만” 공간이 의미하는 것은: 기세들과 에너지들과 힘들 그리고 총만하게 된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현존들이 비(非)충만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수직 (저장소)공간이 항상 수평 (우주)공간의 평형추로 기능하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비충만 공간에 관하여 거기에 창조적 의도가 있는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공간 저장소들에 대해 실제로 거의 알지 못한다, 다만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들이 우주들의 우주의 공간-확대-축소 주기들을 균형 잡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 뿐이다.

11:6.4 (123.6) 공간 호흡 작용의 주기들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10억 년보다 약간 긴 기간 동안 각 위상 안에서 전개된다. 한 위상에서 우주들이 팽창하며; 다음 위상에서 그것들이 축소한다. 충만 공간은 지금 확대하는 위상의 중앙-지점에 접근하고 있는 반면, 비충만 공간은 축소 위상의 중앙-지점에 접근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론적으로 볼 때 두 공간 확장들의 최 외곽 한계들이 지금 파라다이스로부터 거의 같은 거리에 있다고 들었다. 지금 비충만-공간 저장소는, 우주의 충만 공간이 가장자리 파라다이스로부터 제4 외부 공간 차원을 향해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초월하여 바깥쪽을 향해 수평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바로 그만큼,

상부 파라다이스 위로 그리고 하부 파라다이스 아래로 수직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11:6.5 (124.1) 유란시아 시간으로 10억년 동안 공간 저장소들이 축소하는 반면, 전체 수평 공간의 주(主)우주 와 기세 활동들은 확대한다. 그리하여 전체 확대-축소 주기를 마치는 데에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20억년보다 약간 더 소요된다.

제 7 장. 파라다이스의 공간 기능

11:7.1 (124.2) 파라다이스의 표면들의 어디에도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누군가가 파라다이스의 상부 표면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위를 "바라본다면", 그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나가고 있거나 혹은 들어오고 있는 비충만 공간 외에는 "보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공간은 파라다이스에 닿을 수 없다; 오직 고요한 중간-공간 지대들만이 중앙 섬과 접촉하게 된다.

11:7.2 (124.3) 파라다이스는 충만 공간과 비충만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지대들의 실재적으로 움직임이 없는 핵이다. 지리적으로 이 지대들은 파라다이스의 상대적 확장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아마도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약화된 공간 움직임의 이들 지대가 총만 공간과 비총만 공간을 분리하는 것을 관찰한다. 비슷한 지대들이 한 때 총만 공간의 차원들 사이에 존재했었지만, 이것들은 지금 더 약화되어 고요하다.

11:7.3 (124.4) 전체 공간의 수직적 횡단 부분은 말타 십자가를 약간 닮았을 것인데, 수평축들은 총만 (우주) 공간을 그리고 수직 축들은 비총만 (저장소) 공간을 나타낸다. 네 축들 사이에 있는 지역들은 마치 중간-공간 지대들이 총만 공간과 비총만 공간을 분리시키는 것처럼 그것들을 분리시킬 것이다. 정지된 이 중간-공간 지대들은 파라다이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거리에서 점점 더 크게 자라고 있으며 결국에는 모든 공간의 경계선들을 에워싸게 되고 공간 저장소들 그리고 총만 공간의 전체 수평 확장 둘 모두를 완벽하게 포함시킬 것이다.

11:7.4 (124.5) 공간은 분별불가 절대자 안에서 하위-절대 상태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별불가 절대자의 현존도 아니며 궁극자의 기능도 아니다. 그것은 파라다이스의 증여이다,

그리고 대우주와 모든 외부 지역들의 공간은, 선조(先祖)가 되는 분별불가 절대자의 공간 잠재력에 의해 실재적으로 충만하게 된 것으로 믿어진다. 이 충만 공간은, 가장자리 파라다이스를 향한 가까운 접근으로부터, 제4 공간 차원을 통해 바깥으로 그리고 주(主)우주 의 가장자리를 뛰어 넘어서, 수평적으로 확장하지만, 얼마나 멀리 지나갈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11:7.5 (124.6) 만일 너희가 유한하지만, 그러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V자 모양의 평면이 그 꼭짓점을 가장자리 파라다이스에 거의 접하고, 파라다이스의 상부 그리고 하부 표면들 둘 양쪽을 향해 직각으로 위치했다고 상상하고, 그 다음에는 파라다이스를 중심으로 타원 회전을 하는 이 평면을 눈에 그려본다면, 그 회전은 충만 공간의 부피를 대략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11:7.6 (124.7) 우주들 안에 있는 어떤 주어진 위치에서도, 수평 공간에 대한 상부 그리고 하부 한계가 있다. 만일 누군가가 오르본톤의 평면을 향해 직각으로 위쪽 또는 아래쪽에서 충분히 멀리 멀어질 수 있다면, 충만 공간의 상부 또는 하부 한계와 결국에는 만나게 될 것이다. 주(主)우주 의 알려진

규모 안에서 이들 한계는 파라다이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거리에서 점점 더 멀리 벌어진다; 공간은 두꺼워진다. 그리고 창조의 평면, 우주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어느 정도 더 빨리 두꺼워진다.

11:7.7 (125.1) 첫 번째 외부 공간 차원으로부터 일곱 초우주들을 분리시키는 것과 같은, 공간 차원들 사이에 있는 비교적 고요한 지대들은, 정지된 공간 활동들의 거대한 타원형 지역들이다. 이 지대들은 규칙적으로 진행하면서 파라다이스 주변을 도는 거대한 성운들을 분리시킨다. 너희는 첫 번째 외부 공간 차원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것인데, 그곳에는 알려지지 않은 우주들이, 파라다이스 둘레를 휘돌아 회전하는 은하계들의 거대한 행진으로서, 상대적으로 고요한 공간 지대들에 의해 안쪽과 바깥쪽 테두리에서 묶여있고 또한 휴면상태의 중간-공간 지대들에 의해 위 아래로 묶인 상태에서, 지금 형태를 이루어 가고 있다.

11:7.8 (125.2) 공간 차원은 상대적 정지됨에 의해 모든 측면들에서 둘러싸인 움직임의 타원형 지역으로 그렇게 기능한다. 움직임과 정지됨의 그러한 관계들은 그것들이

파라다이스의 섬 둘레를 언제까지나 회전함에 따라
조화우주 기세와 창발 에너지에 의해 우주적으로
따라오는, 움직임에 대하여 줄어든 저항의 구부러진 공간
경로를 구성한다.

11:7.9 (125.3) 주(主)우주 의, 성운들의 시계 방향 그리고 반시계
방향의 교대 흐름과 관련된, 이 교대 시대 설정은 붕괴되는
그리고 분산되는 활동 지점에 이르는 중력 압력의
가속화를 방지하도록 고안된 물리적 중력의 안정에 있는
요소이다. 그러한 준비는 반(反)중력 효과를 발휘하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험한 속도에 대한 하나의
제동장치로서 활동한다.

제 8 장. 파라다이스 중력

11:8.1 (125.4) 벗어날 수 없는 중력의 끌어당김이 전체 공간의
모든 우주들의 세계들을 모두 효과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중력은 파라다이스의 물리적 현존의 만능의 장악력이다.
중력은, 만물이시고, 모든 것들을 채우며 그의 안에 만물이
있는, 영원한 하느님의 우주적 물리적 장식품을 구성하는
빛나는 별들과 타오르는 태양들 그리고 소용돌이치는
구체들을 묶는 전능한 끈이다.

11:8.2 (125.5)

절대적 물질 중력의 중심 그리고 초점은 파라다이스 섬인데, 하보나를 도는 암흑중력체들에 의해 보완되고 상부 그리고 하부 공간 저장소들에 의해 평형을 이룬다. 하부 파라다이스의 알려진 모든 방사물들은 주(主)우주 의 타원 공간 차원들의 끝없는 순환회로 위에서 작동하는 중앙 중력 끌어당김에 일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응답한다. 조화우주 실체의 알려진 모든 형태는 세월의 구부러짐, 순환계의 경향, 거대한 타원의 회전 움직임을 갖는다.

11:8.3 (125.6)

공간은 중력에 대해 반응하지 않지만, 중력에 대해 평형추로서 활동한다. 공간 완충물이 없다면, 폭발 활동이 주변의 공간 본체들을 비틀어버릴 것이다. 충만 공간 역시 물리적 또는 직선적 중력에 반(反)중력 영향을 발휘한다; 공간은 그러한 중력 활동을 지연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재적으로 중화시킬 수 있다. 절대 중력은 파라다이스 중력이다. 지역적 또는 직선적 중력은 에너지 또는 물질의 전기적 단계에 속해 있다; 그것은 중앙, 초-, 그리고 외부 우주 안에서, 적당한 물질화가 발생된 곳이면 어디서나 작동한다.

11:8.4 (125.7) 조화우주 기세, 물리적 에너지, 우주 힘, 그리고 다양한 물질화의 수많은 형태들은 완전하게 분명하지는 않지만 파라다이스 중력에 응답하는 일반적인 세 단계들을 나타낸다:

11:8.5 (126.1) 1. 중력 이전(以前) 단계들 (기세). 이것은 우주 기세의 에너지-이전형태 안에 있는 공간 잠재력의 개별화에서의 첫 단계이다. 이 상태는 때로 순수 에너지 또는 분리소(分離素)라고 불리는, 공간의 원초기세-충전의 개념과 비슷하다.

11:8.6 (126.2) 2. 중력 단계들 (에너지). 공간의 기세-충전에 대한 이 변경은 파라다이스 기세조직자들의 활동에 의해 산출된다. 그것은 파라다이스 중력의 끌어당김에 응답하는 에너지 체계들이 나타난다는 신호이다. 이 창발 에너지는 기원적으로 중성이지만 이어진 변형의 결과로 소위 음성 그리고 양성의 본질특성들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단계들을 궁극력이라고 부른다.

11:8.7 (126.3) 3. 중력 이후 단계들 (우주 힘). 이 단계에는, 에너지-물질이 직선적 중력의 통제에 대하여 응답을 나타낸다. 중앙우주 안에는 이 물리적 체계들이

삼력소(三力素)라고 알려진 삼중적 조직들이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계에 대한 초(超)힘 모체(母體) 체계들이다. 초우주들의 물리적 체계들은 우주 힘 지도자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에 의해 동원된다. 이 물질적 조직들은 조성에서 이원적(二元的)이며 중력소(重力素)라고 알려져 있다. 하보나를 돌고 있는 암흑중력체들은 삼력소(三力素)도 아니고 중력소(重力素)도 아니며, 그것들의 이끄는 힘은 물리적 중력의 직선적, 그리고 절대적 두 형태들 모두를 나타낸다.

11:8.8 (126.4) 공간 잠재력은 중력의 어떤 형태의 상호작용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파라다이스의 이 시원적 자질은 실체의 실재적 차원은 아니지만, 모든 상대적인 기능적 비(非)영 실체들—기세-에너지의 모든 현시활동들, 그리고 힘과 물질의 조직, 에게 조상이 된다. 공간 잠재력은 정의를 내리기 힘든 용어이다. 그것은 공간의 조상이 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의미는 공간 안에 실존하는 잠재와 잠재력의 개념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파라다이스로부터 발산하고 분별불가 절대자의 공간 현존을 구성하는 그 모든 절대적 영향들과 잠재들을 포함하는 것은 대략 이해가 될 것이다.

11:8.9 (126.5) 파라다이스는 우주들의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물질의 절대적 근원이자 영원한 초점이다. 분별불가 절대자는 계시자이고 규제자이며 파라다이스를 그 근원이자 기원으로 갖는 저장소이다. 분별불가 절대자의 우주적 현존은, 파라다이스 현존의 유연한 긴장, 중력 확장의 잠재적 무한성의 개념에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개념은 모든 것이 파라다이스를 향해 안쪽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표현이 미숙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된다. 그것은 또한 파라다이스의 서로 다른 규모들과 둘러싸는 창조계를 가리키는 현상, 그 집합체와 수직을 이루는 평면 안에서, 중력이 왜 항상 우선적으로 활동하는가를 설명한다.

제 9 장. 파라다이스의 독특성

11:9.1 (126.6) 파라다이스는 그것이 시원(始原)적 기원 영역이고 모든 영 개인성들을 위한 운명의 최종목적지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지역우주들의 비교적 낮은 영 존재들 모두가 즉각적으로 파라다이스를 향한 운명에 있지 않다는 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파라다이스는 모든 초물질적 개인성들을 위한 욕망의 목적지로 여전히 남아 있다.

11:9.2 (126.7) 파라다이스는 무한성의 지리적 중심이다; 그것은 우주 창조의 일부분이 아니고, 심지어는 영원한 하보나 우주의 실제 부분도 아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앙 섬을 신성한 우주에 속하는 것으로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파라다이스는 영원하고 배타적인 실존다.

11:9.3 (127.1) 과거의 영원 속에서, 우주 아버지가 영원한 아들의 존재 안에서 자신의 영(靈) 자아에 대한 무한 개인성 표현을 할 때, 그는 동시적으로 자신의 비(非)개인적 자아의 무한 잠재를 파라다이스로써 계시하였다. 비(非)개인적 그리고 비(非)영적 파라다이스는 기원 아들을 영존시킨 아버지의 의지와 행위에 필연적 반향이 되어 왔던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실재적 두 위상들—개인적 그리고 비(非)개인적, 영적(靈的) 그리고 비(非)영적—안에 실체를 구체적으로 투사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에 의한 행동에 대한 의지에 직면하여, 그들 사이의 긴장은 공동 행위자와 그리고 물질적 세계들과 영적 존재들의 중앙우주에게 실존함을 주었다.

11:9.4 (127.2) 실체가 개인적 존재와 비(非)개인적 존재로 (영원한 아들과 파라다이스으로) 차별화될 때, 그 어떤

본질성 분별화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비(非)개인적인 “신(神)”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신(神)의 활동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물질적 반향들은 신(神)이라고 불릴 수 없다. 신(神)은 신(神)이 아닌 많은 것에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신(神)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필사 사람이 그러한 용어를 언젠가 가능하게 납득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의식되는 것도 아니다.

11:9.5 (127.3) 파라다이스는 어떤 존재 또는 살아있는 실존개체에도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자가 아니다. 개인성과 마음-영 관계들은 전달될 수 있다, 하지만 원형들은 그렇지 않다. 원형들은 결코 반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복제—재생산하는 것—이다. 파라다이스는 원형들의 절대이다; 하보나는 실재성 안에서의 이들 잠재들의 전시이다.

11:9.6 (127.4) 하느님의 주거지는 중앙이며 영원하고, 영화로우며 이상(理想)이다. 그의 집은 모든 우주 본부 세계들을 향한 아름다운 원형틀이다; 그의 즉각적인 내주인 중앙우주는, 그들의 이상, 조직 그리고 궁극적 운명에서 모든 우주들을 위한 원형틀이다.

11:9.7 (127.5) 파라다이스는 모든 개인성 활동들의 우주적 본부이고 모든 기세-공간과 에너지 현시활동의 근원-중심이다. 존재해 왔거나 지금 존재하고 있는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모든 것이, 영원한 하느님들의 이 중앙 거주 장소로부터 도래해 왔거나 지금 오고 있거나 또는 도래하게 될 것이다. 파라다이스는 모든 창조의 중심이고 모든 에너지들의 근원이며 모든 개인성들이 시원적으로 지원된 곳이다.

11:9.8 (127.6) 무엇보다도, 필사자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파라다이스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 아버지의 이 완전한 거주지가, 하느님의 필사자 물질적 아들들,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에 속한 상승하는 창조체들의 불멸 혼의 실제로 그리고 멀리-떨어진 운명이라는 사실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생애를 지지해 온 하느님을-아는 모든 필사자는 신성 추구와 완전성 달성의 길고 긴 파라다이스 길을 이미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낮은 공간 구체들로부터 상승해 오면서, 그러한 한 동물-지원 존재가, 무수한 자들이 지금 하듯이, 파라다이스에 계신 하느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러한 어떤 성취는 최극위의 한계위에서 테두리를 이루는 영적 변환의 실체를 나타낸다.

11:9.9 (127.7) [유버사에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로부터 이렇게
기능하라고 임명받은 지혜의 완전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12 편 우주들의 우주

12:0.1 (128.1) 우주 아버지의 멀리 퍼지는 창조의 광대함은
유한한 상상력에서의 파악을 철저하게 넘어선다;
주(主)우주 의 거대함은 심지어 나와 같은 계층의 존재의
개념으로도 어렵다. 그러나 필사자 마음은 우주들의
계획과 배열에 관해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너희는
그것들의 물리적 조직과 놀라운 관리-행정의 무언가를 알
수 있다; 너희는 시간의 일곱 초우주들과 영원한
중앙우주에 거주하는 지능 존재들의 다양한 집단들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다.

12:0.2 (128.2) 원칙적으로, 영원한 잠재에 있어서, 우리는 우주
아버지가 실재적으로 무한하시기 때문에, 물질적 창조를
무한한 것으로 상상하지만, 전체 물질적 창조를 우리가
연구하고 관찰할 때, 우리는 그것이 너희 유한
마음들에게는 비교적으로 제한이 없는, 실질적으로 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속에서 주어진 어떤 순간에도
그것이 제한되어 있음을 우리는 안다.

12:0.3 (128.3) 물리적 법칙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리고 별이 빛나는 영역들을 관찰한 결과, 우리는 무한한 창조자가 조화우주 표현의 최종에서 아직 현시되지 않고, 무한자의 조화우주 잠재 대부분이 아직도 자아-억제되어 있고 밝혀지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창조된 존재들에게, 주(主)우주 는 거의 무한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이 완결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물질적 창조에는 아직도 물리적 한계들이 있고, 영원한 목적에 대한 체험적 계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제 1 장. 주(主)우주 의 공간 차원

12:1.1 (128.4) 우주들의 우주는 무한 평면, 끝이 없는 입방체, 끝이 없는 원형도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규모를 갖고 있다. 물리적 조직 및 관리-행정의 법칙들은 기세-에너지와 물질-힘의 거대한 전체 집단이 궁극적으로 어떤 공간 단위로, 조직되고 조화-협동된 전체로서 기능함을 결정적으로 증명한다. 물질적 창조의 관찰 가능한 행실은 분명하게 제한된 물리적 우주의 증거가 된다. 원형의 그리고 한계가 정해진 우주에 대한 최종적인 증명은, 기초 에너지의 모든 형태들이 파라다이스 중력의 끊임없는 그리고 절대적인 끌어당김에 복종하여 주(主)우주 의 공간

차원들의 곡선 경로 둘레를 언제까지나 휘돌아 회전한다는, 잘 알려진 사실로, 우리에게 제공된다.

12:1.2 (128.5) 주(主)우주 의 연속적인 공간 차원들은 펼쳐진 공간의—전체 창조, 조직되고 부분적으로 거주되거나 아직 조직되어지며 거주하게 될—주요 부분들을 구성한다. 만약에 주(主)우주 가 상대적으로 정지된 지대들과 교대하면서, 움직임에 대해 축소된 저항의 일련의 타원 공간 차원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조화우주 에너지들 중 일부가 무한한 거리로 힘차게 튀어나오는, 궤도가 없는 공간 속으로 직선 경로로 튀어나오는 것이 관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작용하는 기세, 에너지, 또는 물질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것들은 항상 휘돌아 회전하며, 커다란 공간 순환회로들의 궤도에서 앞을 향하여 항상 회전한다.

12:1.3 (129.1) 충만 공간의 수평 확장을 통하여 파라다이스로부터 밖을 향해 진행할 때, 주(主)우주 는 여섯 동심원 타원들, 중앙 섬을 도는 공간 차원들 안에서 실존한다:

12:1.4 (129.2) 1. 중앙우주—하보나.

12:1.5 (129.3) 2. 일곱 초우주.

12:1.6 (129.4) 3. 제1 외부 공간 차원.

12:1.7 (129.5) 4. 제2 외부 공간 차원.

12:1.8 (129.6) 5. 제3 외부 공간 차원.

12:1.9 (129.7) 6. 제4 및 최-외부 공간 차원.

12:1.10 (129.8) 중앙우주인 하보나는, 시간 창조가 아니며; 그것은 영원한 실존다.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이 우주는 숭고한 완전성을 갖는 10억 개의 구체들로 구성되며 거대한 암흑중력체들로 둘러싸여 있다. 하보나의 중심에는, 고정되어 있고 절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파라다이스 섬이 있는데, 21개 위성들로 둘러싸여 있다. 중앙우주 둘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암흑중력체들의 거대한 질량들 때문에, 이 중앙 창조의 질량 내용물은 대우주의 일곱 부분들 전체의 알려진 총 질량을 훨씬 뛰어넘는다.

12:1.11 (129.9) 파라다이스-하보나 체계는, 영원한 섬을 돌고 있는 영원한 우주이며, 주(主)우주 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핵을 이루고 있다; 일곱 초우주들 전체와 외부 공간의 모든

지역들은 확립된 궤도들 안에서 파라다이스 위성들과 하보나 구체들의 거대한 중앙 집합체 둘레를 회전한다.

12:1.12 (129.10) 일곱 초우주들은 시원적인 물리적 조직들이 아니며; 그것들의 경계선들은 어디에서도 성운 가족을 나누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최초 창조 단위인 지역우주를 교차하지 않는다. 각 초우주는 단지 조직되고 부분적으로 거주민이 사는 하보나-이후 창조의 약 7분의 1이 모여 있는 지리적 공간 군(群)이며, 각각은 포용된 지역우주의 숫자에 있어서 그리고 둘러싸인 공간에 있어서 거의 똑같다. 너희 지역우주인 네바돈은, 일곱 번째 초우주인 오르본톤에서 비교적 최근에 창조된 것들 중 하나이다.

12:1.13 (129.11) 대우주는 현재 조직되고 그리고 거주민이 사는 창조이다. 그것은, 중앙 창조의 영원한 구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주민이 사는 약 7조 개의 행성들의 총체적인 진화 잠재를 가진, 일곱 초우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불확실한 이 추정치는 고안건축의 행정-관리적 구체들은 감안하지 않은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것은 조직되지 않은 우주들의 밖에 있는 집단들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대우주의 들쭉날쭉한 현 경계선, 그것의 불규칙하고 미(未)완결된 가장자리는, 천문상의 전체 계획의 매우 안정되지 않은 상태와 함께, 별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일곱 초우주들까지도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가 안으로부터, 신성한 중심으로부터 어떤 한 방향에서 밖을 향하여 움직일 때, 우리는 결국에는 조직되고 거주민이 사는 창조의 외부 한계점에 도달하며; 우리는 대우주의 외부 한계들에 도달한다. 그리고 너희 지역우주가 그 사건 많은 실존을 이어가고 있는 곳은 그러한 장엄한 창조의 멀리 떨어진 구석에 있는 이 외부 경계선 근처이다.

12:1.14 (129.12) 외부 공간 차원. 공간 안에서 멀리 떨어진, 거주민이 사는 일곱 초우주들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기세와 물질화 되는 에너지들의 광대하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순환회로들이 집합되고 있다. 일곱 초우주들의 에너지 순환회로들과 기세 활동의 이 거대한 외부 띠 사이에는, 비교적 고요한 공간 지대가 있으며, 폭에는 여러 가지 이지만 그 평균들은 약 400,000광년이다. 이 공간 지대들은 별 먼지—우주안개—가 없다. 이 현상들을 연구하는 우리

학생들은 일곱 초우주들을 돌고 있는 비교적 고요한 이 지대 안에 존재하는 공간-기세들의 정확한 상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우주 가장자리를 약 500,000광년 벗어난 곳에서 우리는 2,500만 광년 이상인 부피와 밀도가 증가하는 믿을 수 없는 에너지 활동의 지대가 시작하는 것을 목격한다. 에너지화 하는 기세들의 이 거대한 회전들은, 알려지고 조직되어 있고 거주민이 사는 창조 전체를 돌고 있는 조화우주 활동의 연속적 띠인, 첫 번째 외부 공간 차원에 위치하고 있다.

12:1.15 (130.1) 더욱 거대한 활동들이 이 지역들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유버사 물리학자들이 이 첫 번째 외부 공간 차원에 있는 현상의 가장 외부 범위들을 5,000만 광년 이상 벗어난 곳에서 기세 현시활동들의 초기증거를 탐지했기 때문이다. 이 활동들은 틀림없이 주(主)우주 의 제2 외부 공간의 물질적 창조계의 조직을 예언한다.

12:1.16 (130.2) 중앙우주는 영원의 창조계이다; 일곱 초우주들은 시간의 창조계들이다; 4개의 외부 공간 차원들은 궁극적으로 창조의 결국 생겨나는-진화로 틀림없이 운명되어있다. 그리고 무한자가 무한성의 개요를

충만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지지하는 존재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확대가 가능하고, 결코 끝이 없는 무한성의 우주인, 제4 그리고 가장 외부 공간 차원을 넘어서는 부가적 그리고 계시되지 않은 창조를 가정한다. 이론상으로 우리는 창조자의 무한성이나 창조의 잠재적 무한성을 제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존재하고 있고 관리-운영되고 있듯이, 우리는 열린 공간에 의해 그것의 외부 경계에 분명하게 한정되고 제한된 것처럼 주(主)우주 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장. 분별불가 절대자의 권역

12:2.1 (130.3) 유란시아 천문학자들이 점점 더 강력한 망원경을 통해, 외부 공간의 신비한 펼침들을 자세히 들여다 볼 때 그리고 거기에서 거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물리적 우주들의 놀라운 진화를 바라볼 때, 그들은 자신들이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의 불가사의한 계획들의 막강한 작업현정을 응시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정말로 우리는 이 외부 지역들의 현재 특징인 광대한 에너지 현시활동들에 두루 여기저기에서 어떤 파라다이스 개인성 영향들의 현존을 암시하는 증거들을 갖고 있지만, 더 큰

관점에서 본다면 일곱 초우주들의 외부 경계들 너머 확장하는 공간 지역들은 일반적으로 분별불가 절대자의 권역들을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12:2.2 (130.4) 인간의 육안만으로는 오르본톤 초우주의 경계들 밖에서 단지 두 세 성운밖에 볼 수 없지만, 너희의 망원경은 형성 과정에 있는 수백만의 이 물리적 우주들을 명확하게 드러낼 것이다. 너희가 지금-현재 망원경의 탐색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별 영역들 대부분은 오르본톤 안에 있지만, 사진 기법을 이용하는 보다 큰 망원경은 대우주의 경계들을 훨씬 넘어서 외부 공간의 권역들을 들어가며, 그곳에는 이야기되지 않은 우주들이 조직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너희가 가진 현재 기구들의 한계를 벗어나는 다른 수백만의 우주들이 있다.

12:2.3 (130.5) 멀지 않은 장래에, 새로운 망원경들이 외부 공간의 머나먼 펼침에서 적어도 3억 7,5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은하계들이 유란시아 천문학자들의 경탄하는 눈앞에 드러낼 것이다. 동시에, 더욱 강력한 이 망원경들은 전에 외부 공간에 있는 것으로 믿었던 많은 섬 우주들이 실제로는 오르본톤에 속한 은하계의 한 부분임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일곱 초우주들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각각의 가장자리는 점점 확대하고 있다; 새로운 성운들이 끊임없이 안정을 찾고 조직되고 있다; 유란시아인 천문학자들이 가외(加外)은하계로 간주하는 그 성운의 일부는 실재적으로는 오르본톤의 바깥 경계선 가까이에 있고 우리들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12:2.4 (131.1) 유버사 별 연구가들은 현재 거주민이 사는 창조를 여러 외부 우주들의 동심원 고리들로서 완벽하게 도는 일련의 별들과 행성 군(群)들의 조상들에 의해 대우주가 둘러싸여 있음을 관찰한다. 유버사의 물리학자들은 외부에 이, 미지의 지역들의 에너지와 물질이 이미 일곱 초우주들 전체의 물질적 질량 및 에너지 총전량의 여러 배에 달하고 있다고 계산한다. 우리는 이 외부 공간 차원들에서 조화우주 기세의 형태변형이 파라다이스 기세조직자들의 기능이라고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 기세들이 현재 대우주를 활성화시키는 그 물리적 에너지들의 근원임도 알고 있다. 아무튼 오르본톤 힘 지도자들은 멀리 떨어진 이 영역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뿐만 아니라 에너지 운동들은 조직되고 거주민이

사는 창조계의 힘 순환회로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서 관련되어 있지 않다.

12:2.5 (131.2) 우리는 외부 공간의 이 거대한 현상의 의의(意義)를 거의 알지 못한다. 미래의 더 큰 창조가 형성 과정에 있다. 우리는 그것의 광대함을 관찰할 수 있고, 그것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고 그것의 장엄한 규모를 느낄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 우리는 유란시아의 천문학자들이 아는 것보다 이 영역들을 약간 더 알고 있다. 우리가 아는 한, 인간 계층의 물질적 존재들도, 천사들 또는 다른 영 창조체들도, 성운과 태양들과 행성들의 이 외부 고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멀리 있는 이 권역은 초우주 정부의 지배와 관리-행정 밖에 있다.

12:2.6 (131.3) 새로운 형태의 창조, 집합되는 최종자 무리단의 미래 활동들의 무대가 되는 우주들의 계층이 진행되고 있음이 오르본톤 전체에서 믿어지고 있다; 만일 우리들의 추측이 맞는다면, 끝없는 과거가 너희 선조들과 선배들을 위해 유지해 왔던 동일한 재미있는 광경들을 끝없는 미래가 너희 모두를 위해 유지할 것이다.

제 3 장. 우주적 중력

12:3.1 (131.4) 모든 형태의 기세-에너지—물질적, 마음적, 또는 영적—는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는, 우주적 현존들인, 지배들에 똑같이 종속된다. 개인성 역시 중력에 대해—아버지의 독점적 순환회로에 대해—응답한다; 이 순환회로가 아버지에게 독점적이라 하더라도, 그는 다른 순환회로들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 우주 아버지는 무한하고 주(主)우주 안에서 네 절대-중력 순환회로들에 두루 활동한다:

12:3.2 (131.5) 1.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 중력.

12:3.3 (131.6) 2. 영원한 아들의 영 중력.

12:3.4 (131.7) 3. 공동 행위자의 마음 중력.

12:3.5 (131.8) 4. 파라다이스 섬의 조화우주 중력.

12:3.6 (131.9) 이 네 순환회로들은 하부 파라다이스 기세 중심에 관련되어 있지 않는다; 그것들은 기세, 에너지 그리고 힘 순환회로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절대 현존 순환회로들이며 하느님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에 대해 독립되어 있다.

12:3.7 (132.1) 이 점에 있어서, 중력 연구자 단체들에 의해 최근 수천 년 동안 유버사에서 만들어진 일정한 관찰들을 기록하는 일은 흥미롭다. 이 노련한 일꾼 집단은 주(主)우주 의 상이한 중력 체계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2:3.8 (132.2) 1. 물리적 중력. 대우주의 전체 물리적-중력 용량의 합계에 대한 추정치를 공식화함으로, 그들은 현재 작동하는 절대 중력 현존의 추정 합계와 이 발견을 열심히 비교하였다. 이 계산들은 대우주에서의 전체 중력 활동이 파라다이스의 추정된 중력 잡아당김의 매우 작은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주 물질의 기초 물리적 단위들의 중력 응답에 기초하여 계산되었다. 이 검사관들은 중앙우주와 주변의 일곱 초우주들이 현재 파라다이스 절대-중력 장악의 실재 기능 중 약 5% 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전체성 이론에 입각하여 계산할 때, 현재 파라다이스 섬의 실재적인 우주-중력 활동의 약 95%는 지금 조직되어 있는 우주들의 경계선 너머에 있는 물질적 체계들을 통제하는 일에 종사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 계산들은 모두 절대 중력을 참조한 것이다; 직선 중력은

오직 실재 파라다이스 중력을 알아야만 그것에 의하여 계산될 수 있는 상호작용적 현상이다.

12:3.9 (132.3) 2. 영적 중력. 이 연구가들은 비교적인 추정과 계산이라는 동일한 기법에 의해 영 중력의 현재 반응 용량을 탐구해 왔으며, 단독 메신저들 및 다른 영 개인성들의 협조로, 둘째근원이며 중심의 실재적인 영 중력의 합계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실재적인 영 중력의 현재 총합이라고 그들이 가정한 것과 대우주에 있는 영 중력의 실재적 및 기능적 현존에서 동일한 값을 그들이 발견하였다는 것은 매우 교훈적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전체성의 이론에 입각하여 계산된, 영원한 아들의 실천적인 현재의 전체 영 중력은 대우주에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될 수 있다. 만일 이 발견들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현재 외부 공간에서 진화하고 있는 우주들이 지금은 전적으로 비(非)영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부여된 존재들이 그들의 물리적 실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외에 이 광대한 에너지 현시활동들에 관하여 거의 또는 전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이유를 그것이 만족스럽게 설명할 것이다.

3. 마음 중력. 상대적인 계산의 이 동일한 원칙들에 의해 이 숙련자들은 마음-중력 현존과 응답의 문제에 도전해 왔다. 비록 힘 지도자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 안에서 발견된 마음 유형이 마음-중력 추정의 기초 단위에 도달하려는 노력에 교란 요소임이 증명되었더라도, 정신활동의 세 가지 물질적 그리고 세 가지 영적 유형들을 평균화함으로써 추정의 마음 단위가 도달되었다. 이 전체성의 이론에 따른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현재 마음-중력 기능의 용량에 대한 추정에 방해되는 것은 거의 없다. 이 경우의 발견들이 비록 물질적 그리고 영 중력의 추정치의 경우처럼 그렇게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고려한다면, 그것들은 매우 교훈적이고, 심지어는 흥미롭기까지 하다. 이 조사자들은 공동 행위자의 지적 당김에 대한 마음-중력 응답의 약 85%가 존재하는 대우주에서 기원된다고 추론한다. 이것은 마음 활동들이 외부 공간의 영역들에 두루 지금 진보하고 있는 관찰 가능한 물리적 활동들과 관련하여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할 것이다. 이 추정이 아마도 정확한 것과는 멀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는, 대우주의 현 외부 한계선을 넘어서는 우주 차원들 안에서 지능적 기세조직자들이

지금 우주 진화를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허용한다. 가정된 지능의 본질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분명히 영-중력 응답이 아니다.

12:3.11 (133.1) 그러나 이 모든 계산들은 기껏해야 가정된 법칙들을 토대로 예측된 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이 제법 믿을 만 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소수의 영 존재들이 외부 공간에 자리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집합적인 현존은 그러한 거대한 측정치들을 포함하는 계산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12:3.12 (133.2) 개인성 중력은 계산할 수 없다. 우리가 순환회로는 인식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는 질적 또는 양적 실체들을 측정할 수 없다.

제 4 장. 공간과 운동

12:4.1 (133.3) 조화우주 에너지의 모든 단위들은 근본적인 회전에서, 그들의 임무 수행에 관여하는 한편, 우주 궤도 둘레를 휘돌아 회전하고 있다. 공간의 우주들과 그것들을 구성하는 체계들 및 세계들은 모두 회전하는 구체들이며, 주(主)우주 공간 차원들의 끝없는 순환회로들을 따라 움직인다. 중력의 중심인 영원한 파라다이스 섬, 하보나의

정중앙을 제외하면 주(主)우주 전체에서 고정된 것은 전혀 하나도 없다.

12:4.2 (133.4) 분별불가 절대자는 기능적으로 공간에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는 움직임에 대한 이 절대자의 관계에 대해 그렇게 확신하지는 못한다. 움직임이 그 안에 고유하게 들어 있는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움직임이 공간 안에 고유한 것이 아니다 라고 알며; 심지어 공간의 움직임들도 타고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움직임에 대한 분별불가 절대자의 관계에 대해 그렇게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의 일곱 초우주들의 경계 너머 밖에서 지금 진보하고 있는 기세-에너지 변형의 거대한 활동들은 실제로 누가 또는 무엇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일까? 움직임의 기원에 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견해들을 갖고 있다:

12:4.3 (133.5) 1. 우리는 공동 행위자가 공간 안에서 움직임을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12:4.4 (133.6) 2. 만일 공동 행위자가 공간의 움직임들을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

12:4.5 (133.7) 3. 우주 절대자가 최초의 동작을 기원시키지는 않았지만 움직임에 의해 기원된 모든 긴장들을 균등하게 하고 통제한다.

12:4.6 (133.8) 외부 공간에서 기세조직자들은 현재 별의 진화 과정에 있는 거대한 우주 소용돌이들의 생성을 명백히 책임지고 있지만, 그렇게 기능하는 그들의 능력은 분별불가 절대자의 공간 현존의 어떤 변형에 의해 가능하게 되어 왔다.

12:4.7 (133.9) 공간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무(無)-부정적—이다; 그것은 오직 어떤 긍정적이고 비 공간적인 것과 관련되어서 존재한다. 아무튼 공간은 실제적이다. 그것은 동작을 포함하고 제한한다. 그것 역시 움직임이다. 공간의 움직임들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12:4.8 (133.10) 1. 1차 운동—공간 호흡 작용, 공간 자체의 움직임.

12:4.9 (133.11) 2. 2차 운동—연속적인 공간 차원들의 번갈아 방향이 바뀌는 휘돌게 하는 회전.

12:4.10 (133.12)

3. 상대적 운동들—그것들은 파라다이스에 비추어 기초지점으로서 평가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이다. 1차 및 2차 운동들은 절대적이며, 움직임이 없는 파라다이스에 대한 상대성에서의 운동이다.

12:4.11 (133.13)

4. 다른 모든 운동들을 조화-협동시키도록 고안된 보상 또는 상관관계하는 움직임.

12:4.12 (134.1)

너희의 태양과 그것에 연관된 행성들의 현재 관계는, 공간에서 많은 상대적 그리고 절대적 운동들을 나타냄과 동시에, 너희가 상대적으로 공간 안에 고정되어 있다는, 그리고 너희의 계산들이 공간에서 밖을 나아감에 따라 주변의 별 무리들과 흐름들이 계속 증가하는 속도로 밖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천문 관찰자들에게 심어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너희는 모든 총만 공간의 물리적 창조계의, 현재의 밖을 향한 그리고 일정한 확대를 깨닫지 못한다. 너희 자신의 지역우주(네바돈)는 밖을 향한 우주적 확대의 이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일곱 초우주들 전체는 주(主)우주 의 외부 지역들과 함께 20억 년 주기의 공간 호흡 작용에 참여하고 있다.

12:4.13 (134.2) 우주들이 확대하고 축소할 때, 총만 공간에서 물질적 질량들은 파라다이스 중력의 흡인력 방향으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교대로 움직인다. 창조의 물질적 질량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행해진 그 작업은 공간 작업이지만 힘-에너지 작업은 아니다.

12:4.14 (134.3) 천문상의 속도들에 대한 너희의 분광기 추정치들이 너희의 초우주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초우주들에 속하는 별의 영역에 적용될 때에는 제법 신뢰할 만하더라도, 외부 공간의 영역들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계산이 전혀 신뢰할 만하지 않다. 스펙트럼의 광선들은 다가오는 어떤 별에 의해 표준으로부터 보라색 쪽으로 옮겨지며; 마찬가지로 이 광선들은 멀어져가는 어떤 별에 의해 빨간 색 쪽으로 옮겨진다. 많은 영향들이 개재함으로써, 외부 우주들의 후퇴 속도가 매 1백만 광년마다 100마일씩 거리가 멀어지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나게 한다. 이 계산 방법에 의해, 더욱 강력한 망원경들이 완전해짐에 따라, 멀리 있는 이 체계들이 초당 3만 마일 이상의 불가사의한 속도로 우주의 이 부분으로부터 날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명백한 이 후퇴 속도는 실제적인 것이 아니며;

그것은 관찰에서 잘못을 포용하고 있는 각도들의 수많은
요인들 및 다른 시간-공간 장애들로부터 기인된다.

12:4.15 (134.4) 그러나 그러한 모든 장애들 중 가장 큰 것은 일곱
초우주들의 권역들 다음에 있는 권역들에서 외부 공간의
광대한 우주들이 대우주의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발생된다. 지금, 이 무수한
성운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있는 태양들과 구체들은, 현재
중앙 창조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일곱
초우주들은 파라다이스 주변을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일곱 초우주들과 마찬가지로, 은하계들 중 2차 외부 우주
역시 파라다이스 주변을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리고
유버사의 천문 관찰자들은 시계방향 본성의 방향성들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멀리 있는 공간의 제3 외부 띠에서 회전
운동들의 증거를 자신들이 포착했다고 생각한다.

12:4.16 (134.5) 우주들의 이들 연속적인 공간 진행 현상의
교대(交代) 방향들이, 우주 절대자가 가진 주(主)우주 내부
사이에 있는 우주 중력 기법, 곧 기세들의 조화-협동과
공간 긴장들의 평형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운동도, 공간도 마찬가지로, 중력의 보완자 곧 평형자이다.

제 5 장. 공간과 시간

12:5.1 (134.6)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 역시 파라다이스의 증여이지만, 같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오직 간접적으로 그러하다. 시간은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되며 마음은 순차성을 선천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보면, 움직임은 시간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파라다이스-하보나 표준일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움직임에 기초를 둔 우주 시간 단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간 호흡의 전체성은 시간 근원으로서의 그것의 지역적 가치를 파괴한다.

12:5.2 (135.1) 공간은 그것이 파라다이스로부터 기원되었다 하더라도 무한하지 않는다; 절대적이지 않은데, 그것이 분별불가 절대자에 의해 충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간의 절대적 한계를 알지 못하지만, 시간의 절대성이 곧 영원임은 알고 있다.

12:5.3 (135.2) 시간과 공간은 시간-공간 창조계, 일곱 초우주들 안에서만 분리될 수 없다. 비(非)시간적 공간(시간이 없는

공간)이 이론적으로 존재하지만, 진정으로 비(非)시간적 장소는 오직 파라다이스 지역뿐이다. 비(非)공간적 시간(공간이 없는 시간)은 기능에서의 파라다이스 차원의 마음 안에 존재한다.

12:5.4 (135.3) 파라다이스와 맞닿아 있고 충만 공간과 비충만 공간을 구분시키는 비교적 움직임이 없는 중앙-공간 지대들은 시간으로부터 영원으로 향한 변환 지대들인데, 그래서 파라다이스 순례자들이 이 변환 동안 무의식이 되는 필요성이 생기며, 이때의 이 변환은 파라다이스 시민권으로 정점을 이룰 때까지 이른다. 시간-의식 방문자들은 그러한 잠을 자지 않고 파라다이스로 갈 수 있지만, 그들은 시간의 창조체로 남아 있다.

12:5.5 (135.4) 시간에 대한 관계들은 공간에서 움직임 없이 존재할 수 없지만, 시간에 대한 인식은 존재할 수 있다. 순차성은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에도 시간을 인식할 수 있다. 마음의 선천적인 본성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공간-엄매임보다 덜 시간-엄매임 이다. 심지어는 육신으로서 이 땅의 생애 동안에도, 사람의 마음이 엄밀하게 공간-엄매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적인 인간 상상력은 비교적

시간과 무관하다. 그러나 시간 자체는 유전적으로 마음의
본질특성은 아니다.

12:5.6 (135.5) 다른 세 차원의 시간 인식이 있다:

12:5.7 (135.6) 1. 마음으로 인식된 시간—순차, 동작에 대한 인식
그리고 기간에 대한 감각.

12:5.8 (135.7) 2. 영으로 인식된 시간—하느님을 향한 움직임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점증하는 신성의 차원들을 향한
움직임에 대한 인식.

12:5.9 (135.8) 3. 개인성은 실체에 대한 통찰력으로부터 독특한
시간 감각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현존에 대한 인식과
기간에 대한 자각을 창조한다.

12:5.10 (135.9) 비(非)영적 동물들은 오직 과거를 알며 그리고
현재에서 산다. 영-내주 사람은 선견(통찰력)의 힘들을
가진다;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 오직 앞을 내다보고
진보적인 태도들만이 개인적으로 실제적이다. 정적인
윤리와 전통적인 도덕성은 단지 약간 초(超)동물적이다.
금욕주의도 자아-실현의 높은 계층은 아니다. 윤리와

도덕은 그것들이 역동적이고 진보적일 때 참으로 인간적인 것이 되며 우주 실체와 함께 살아있게 된다.

12:5.11 (135.10) 인간의 개인성은 단순히 시간-과-공간 사건들의 부수물이 아니며; 인간의 개인성은 그러한 사건들의 조화우주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제 6 장. 우주적 전반적-통제

12:6.1 (135.11) 우주는 정지되어 있지 않다. 안정성은 관성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균형 잡힌 에너지들, 협조적 마음들, 조화-협동하는 모론시아들, 영 전반적-통제, 그리고 개인성 통일의 산물이다. 안정성은 전적으로 그리고 항상 신성에 비례한다.

12:6.2 (135.12) 주(主)우주 의 물리적 통제에 있어서 우주 아버지가 파라다이스 섬을 통하여 우선권과 시원성을 행사한다; 하느님은 우주의 영적 관리-행정에 있어서 영원한 아들의 개인으로 절대적이다. 마음의 권역들과 관련하여, 아버지와 아들은 공동 행위자 안에서 조화-협동적으로 기능한다.

12:6.3 (136.1) 셋째근원이며 중심은, 조화우주 마음의 그의 장악의 절대성 달성에 의해 그리고 그의 선천적이고 우주적인 물리적-및 영적-중력 보완의 실행에 의해, 병합하는 물리적 그리고 영적 에너지들과 조직들의 평형과 조화-협동의 유지를 돕는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 사이에 연락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그러한 마음 현상은 무한한 영의 활동이다. 마음이 홀로 물질적 차원의 물리적 기세와 에너지를 영 차원의 영적 힘들과 존재들과 상호-연관할 수 있다.

12:6.4 (135.14) 우주적 현상에 대한 너희의 모든 깊은 사색에서, 너희가 물리적 지적 그리고 영적 에너지들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것과, 그리고 그리고 개인성에 의한 그것들의 통일에서 수반되는 예기치 않은 현상을 위해서, 그리고 체험적 신(神)과 절대자들의 활동 및 반응의 결과로서 생기는 예상 불가능한 현상을 위해서, 적당한 허용 한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라.

12:6.5 (135.15) 우주는 양적인 또는 중력-측정 감각에서만 매우 예측 가능하다; 심지어는 1차적인 물리적 기세도 직선적

중력에 응답하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궁극 우주 실체들의 더 높은 마음 의미들과 참된 영 가치들 역시 그렇지 않다. 질적으로 볼 때, 우주는 비록 그러한 많은 에너지들 또는 기세들의 조합이, 임계 관찰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예측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기세의 관계적-연합들, 물리적, 마음적 또는 영적인 것에 대하여 그렇게 높게 예측할 수 없다. 물질과 마음 그리고 영이 창조 개인성에 의해 합일될 때, 우리는 그러한 자유의지 존재의 결정을 충만하게 예측할 수 없다.

12:6.6 (135.16) 원초(원초) 기세, 초기의 영, 그리고 다른 비(非)개인적 최종들의 모든 위상들이 어떤 비교적 안정된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법칙들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한되고 고립된 상황의 현상에 처했을 때 종종 혼란케 되는 응답의 융통성 그리고 행위 정도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창발 하는 이들 우주 실재성들에 의해 밝혀진 예측할 수 없는 이 반응의 자유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 이들 알려지지 않은, 불가해한 예측 불가능한 것들은—기세의 원시적 단위의 행태, 미(未)-정체성확인 의 마음 차원에서의 반응, 또는 외부 공간의 권역들에서 발달 중인 광대한 우주-이전(以前)의 우주의 현상에 속하든지

아니든지—아마도 모든 우주 창조자들의 기능보다
앞서는, 궁극자의 활동들과 절대자들의 현존-행위들을
나타낼 것이다.

12:6.7 (135.17) 우리는 실제로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놀라운
융통성과 그러한 심오한 조화-협동이 그 절대자들의 현존
그리고 행위를 의미하며, 그리고 명백히 획일적인
원인성에 대한 그러한 응답의 다양성이 즉각적이고도
상황적인 원인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 주(主)우주에
두루 다른 모든 관련 원인성들에 대해서도 절대자들의
반응을 나타낸다고 추측한다.

12:6.8 (135.18) 개별존재들은 자신들의 운명의 수호자들을 갖고
있다; 행성들, 체계들, 별자리들, 우주들, 그리고 초우주들
각각은 그들의 권역들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각각의
통치자들을 갖는다. 하보나 그리고 심지어는 대우주도
그러한 높은 책임들이 위임된 그들에 의해 돌봄을 받는다.
그러나 파라다이스로부터 4번째 그리고 가장 바깥쪽 공간
차원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전체로서 주(主)우주의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돌보고 염려할 자가 누구인가? 실존적으로
그러한 보살핌은 아마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로부터

기인되겠지만, 체험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보나-이후 우주들의 상황은 다음에 의존한다:

12:6.9 (135.19) 1. 잠재에서 절대자.

12:6.10 (135.20) 2. 방향에서 궁극자.

12:6.11 (137.1) 3. 진화적인 조화-협동에서 최극자.

12:6.12 (137.2) 4. 특정한 통치자들의 출현에 선행하는 관리-행정에서 주(主)우주 고안건축가.

12:6.13 (137.3) 분별불가 절대자는 전체 공간에 널리 퍼져 있다. 우리 모두가 신(神)과 우주 절대자들의 정확한 지위에 대해 분명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신(神) 그리고 분별불가 절대자들이 기능하는 곳마다 후자의 기능들을 알고 있다. 신(神) 절대자는 우주적으로 현존할 수 있지만 공간 현존은 거의 불가능하다. 궁극자는 제4 공간 차원의 외부 경계에 공간 현존하거나 또는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궁극자가 주(主)우주 의 가장자리를 넘어서 공간 현존을 항상 가질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만, 이 한계 안에서 궁극자는 세 절대자들의 잠재의 창조적 조직을 점진적으로 집대성하고 있다.

제 7 장. 부분과 전체

12:7.1 (137.4) 시간과 공간에 두루, 그리고 어떤 본성이든지 모든 실체에 대하여 조화우주 섭리의 기능과 대등한 냉혹하고도 미(未)개인적인 법칙이 존재한다. 자비는 개별존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의 태도라는 특징을 나타낸다; 공명정대함은 전체를 향한 하느님의 태도에 동기가 된다. 하느님의 뜻이 부분—어떤 한 개인성의 가슴—속에 반드시 만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뜻은 전체, 우주들의 우주를 실재적으로 다스린다.

12:7.2 (137.5) 그의 모든 존재들에 대한 그의 모든 관계들에 있어서 하느님의 법칙들이 선천적으로 독단적이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희의 제한된 통찰력과 유한한 관점을 가지고 보면, 하느님의 행동들은 독재적이고 독단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하느님의 법칙들은 단지 하느님의 관습들, 반복적으로 일을 행하는 그의 방법일 뿐이다; 그는 언제나 모든 것들을 잘 이루신다. 너희는 하느님이 같은 것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관찰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특별한 그 일을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일 뿐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 옳은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지혜는 그것이 정확하고도 완전한 그 방법에 의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명령한다. 너희는 또한 자연 현상이 신(神)의 독단적 행위가 아님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사람이 자연이라고 부르는 그 현상들 속에는 다른 영향들이 제시되어 있다.

12:7.3 (137.6) 어떤 종류의 퇴보를 체험하고 또는 순전히 개인적인 행위를 어떤 열등한 방법으로 하도록 계속 허용하는 것은 신성한 본성에 모순된다. 아무튼 만일, 어떤 상황의 신성에 있어서, 어떤 환경의 극단에서, 최극 지혜의 진로가 다른 행위성의 요구를 지시하는 어떤 경우에—만일 완전성에 대한 요구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반응의 방법, 더 나은 방법을 명령하면, 그 때 그리고 거기에 모든-지혜이신 하느님이 더 나은 그리고 더 적당한 방법으로 기능한다. 그것은 보다 낮은 법칙의 반전이 아니라, 더 높은 법칙의 표현이 될 것이다.

12:7.4 (137.7) 하느님은 자기 자신의 자발적인 활동들의 만성적 반복에 습관적으로 묶인 노예가 아니다. 무한자의 법칙들 가운데에는 갈등이 없으며; 그것들은 모두 전혀 오류가 없는 본성의 모든 완전성이다; 그것들은 모두 결점이 없는

결정을 표현하는 명백한 행위들이다. 법칙은 무한하고 완전하며 신성한 마음의 변함없는 반응이다. 하느님의 행위들은 명백한 이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모두 의지적이다. 하느님 안에는 “변덕스러움도 없고 변화의 그림자도 없다.” 그러나 우주 아버지에 대해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그의 모든 종속된 지능체들 또는 그의 진화적 창조체들에 대한 동일한 확실성에서 이야기될 수는 없다.

12:7.5 (137.8) 하느님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정상적 환경들 속에서, 동일한 그리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동일한 것을 하는 그의 행위에 의존할 수 있다. 하느님은 창조된 모든 사물들과 존재들을 위한 안정성의 보증이다. 그는 하느님이시며; 그러므로 그는 변하지 않는다.

12:7.6 (138.1) 그리고 이 행위성의 불변과 행동의 일관성은 개인적, 의식적이며 매우 의지적인데 왜냐하면 위대한 하느님은 그 자신의 완전성과 무한성에 대해 어떤 도움도 없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자아-행동하는 자동적 기세가 아니며; 그는 법칙에 묶인 노예적인 힘이

아니다. 하느님은 수학 방정식도 아니며 화학 공식도 아니다. 그는 자유의지이고 근원적 개인성이다. 그는 우주 아버지, 개인성으로 가득 채워져 넘쳐나는 존재이며 모든 창조체 개인성의 우주 원천이다.

12:7.7 (138.2)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을 찾는 물질적 필사자의 가슴에 한결같이 가득 만연한 것은 아니지만, 만일 시간의 틀이 순간을 넘어, 첫 번째 일생 전체를 포용하도록 커진다면,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의 영-인도 자녀들의 삶 속에서 태어난 영 열매들 안에서 점점 더 식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만일 인간 삶이 모론시아 체험을 포함할 정도로 더욱 증대되면, 신성한 뜻은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과 사람의 개인성의 관계를 체험하는 신성한 기쁨을 이미 맛보기 시작한 시간의 이 창조체들의 영성화 되는 행위들 안에서 점점 더 밝게 빛나는 것이 관찰될 것이다.

12:7.8 (138.3) 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람의 형제신분은 개인성 차원의 부분과 전체의 패러독스를 나타낸다. 하느님은 각 개별존재를 하늘의 가족 안에서의 개별적 자녀로 사랑하신다. 하느님이 각각의 개별존재를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을 차별대우하지 않고, 그의 사랑의 보편성은 전체의 관계, 우주적 형제신분이 되게 한다.

12:7.9 (138.4) 아버지의 사랑은 각 개인성을 우주 아버지의 독특한 한 자녀로, 무한성 안에서 중복되지 않는 자녀, 모든 영원에서 대치될 수 없는 의지적 자녀로, 절대적으로 개별존재화 시킨다. 아버지의 사랑은 하느님의 각각 자녀를 영화롭게 하며, 천상의 가족의 각 구성원들을 비추고 있으며, 모든 것에서의 아버지의 형제우애 순환회로 밖에 있는 미(未)개인적 차원들에 대조하여 각 개인적 존재의 독특한 본성을 선명하게 윤곽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느님의 사랑은 각각의 의지 창조체의 초월적 가치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데, 파라다이스 지위의 가장 높은 창조자 개인성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에 있는 인간 종족들의 여명기에 야만인 부족들 중에서 의지 존엄성을 갖는 가장 낮은 개인성에 이르기까지 그의 자녀들 각각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우주 아버지가 부여해온 높은 가치를 반드시 드러낸다.

12:7.10 (138.5) 개별존재에 대한 하느님의 바로 이 사랑은 모든 개별존재들의 신성한 가족,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자유의지의 자녀들이 우주적 형제신분을 이루게 한다. 그리고 우주적인 이 형제신분은 우주적임으로 전체의 관계이다. 형제신분은, 우주적일 때 각각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나타낸다. 형제신분은 전체의 실체이며 그렇기 때문에 부분의 본질특성과는 대조적으로 전체의 본질특성을 나타낸다.

12:7.11 (138.6) 형제신분은 우주 실존에서 모든 개인성 사이의 관계 사실을 구성한다. 어떤 개인도 다른 개인들에 대한 관계의 결과로서 올 수 있는 은혜 또는 형벌을 피할 수 없다. 부분은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이익을 얻거나 고통을 겪는다. 각 사람의 선한 노력은 전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각 사람의 잘못 또는 악은 모든 사람들의 시련을 증강시킨다. 부분이 움직이는 만큼, 전체도 움직인다. 전체가 진보하는 만큼 부분도 진보한다. 부분과 전체의 상대적 속도는 부분이 전체의 관성에 의해 뒤쳐지는가 아니면 조화우주 형제신분의 추진력에 의해 앞으로 옮겨지는가를 결정한다.

12:7.12 (139.1) 하느님은, 거주 본부에 계시는 매우 개인적인 자아-의식의 존재이고, 동시에 그러한 광대한 우주에 개인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면서 그러한 거의 무한한 숫자의 존재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있음은 하나의 신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러한 현상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라는 사실이 너희의 신앙을 조금도 경감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무한성의 거대함, 영원의 광대함, 그리고 하느님의 비길 데 없는 성격의 위대함과 영광이 너희를 위압하거나 동요시키거나 낙담시키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너희들 중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도 매우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 안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움직이고, 실재적으로 살고, 정말로 우리의 존재가 있다.

12:7.13 (139.2) 파라다이스 아버지가 그의 신성한 창조자들과 그의 창조 자녀들을 통하여 기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한 너희와 가장 긴밀한,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심히 개인적이어서, 그런 아버지 단편과 인간 혼 그리고 그것이 실재적으로 깃든 필사자 마음과의 신비로운 교제가 나의 이해를 벗어나는, 그러한 내적 접촉을

즐기신다. 하느님의 이 선물들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너희는 아버지가 그의 신성한 연관-동료들에게 뿐만 아니라 시간의 진화하는 필사자 자녀들과도 마찬가지로 긴밀하게 접촉하심을 너희가 아는 것이다. 아버지는 정말로 파라다이스에 거주하시지만, 그의 신성한 현존은 또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거주하신다.

12:7.14 (139.3) 아들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졌더라도, 아들이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너희와 함께 한 때 거했다 하더라도, 세라핌천사가 너희를 개인적으로 지키고 안내한다 하더라도, 둘째 그리고 셋째 중심의 이들 신성한 존재들 중 어느 누구가, 너희 안에 있기 위하여 자신의 일부분을 내어준 아버지처럼 그렇게 너희에게 가까이 올 수 있거나, 그토록 충만하게 너희를 납득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너희의 실제적이고 신성한 자아, 심지어는 너희의 영원한, 자아가 되기를 언제까지나 희망할 수 있겠는가?

제 8 장. 물질, 마음, 그리고 영

12:8.1 (139.4)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나 파라다이스는 그렇지 않다. 물질적 우주는 항상 모든 영적 활동들이 일어나는

장(場)이다; 영 존재들과 영 상승자들은 물질적 실체의 물리적 구체 위에서 살고 활동한다.

12:8.2 (139.5) 조화우주 기세의 증여(贈與), 조화우주 중력의 권역은 파라다이스 섬의 기능이다. 모든 근본적인 기세-에너지는 파라다이스로부터 나오고, 언급되지 않은 우주들을 만들기 위한 물질이 현재 주(主)우주 에 두루 순회하고 있는데, 충만 공간의 기세-충전을 구성하는 초(超)중력 현존의 형태를 하고 있다.

12:8.3 (139.6) 외곽 우주들 안에서 어떤 기세의 변환들이든지, 파라다이스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끝이 없는, 항상 존재하는, 확실한 영원 섬의 끌어당김에 종속되어 운행하는데, 우주들의 영원한 공간 경로들의 끝없는 둘레에서 충실하게 그리고 선천적으로 휘돌아 회전하고 있다. 물리적 에너지는 우주적 법칙에 대한 복종에 있어서 진실하고 확고부동한 유일한 실체이다. 오직 창조체 의지의 영역에서만 신성한 경로들과 기원적 계획들로부터의 이탈이 존재할 뿐이다. 힘과 에너지는 중앙에 있는 파라다이스 섬의 안정성, 불변성, 그리고 영원성의 우주적 증거물들이다.

12:8.4 (139.7) 영의 증여와 개인성들의 영성화, 영적 중력의 권역은 영원한 아들의 영역이다. 그리고 모든 영적 실체들을 자신에게로 잡아당기는 아들의 영 중력은 파라다이스 섬의 만능의 물질적 장악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이고 절대적이다. 그러나 물질적 마음을 가진 사람은 혼의 영적 통찰력에 의해서만 식별되는 영적 본성의 동등하게 실제적이고 강력한 작용들과의 경우보다 물리적 본성의 물질적 현시활동들과 본래적으로 더 친밀하다.

12:8.5 (140.1) 우주에서 어떤 개인성의 마음이 더욱 영적으로—하느님과-같음이—되면 그것은 물질적 중력에 덜 응답하게 된다. 물리적-중력 응답에 의해 측정되는 실체는 영 내용물의 본질특성에 의한 결정에 따르는 실체의 정반대 대조물이다. 물리적-중력 활동은 비(非)영 에너지의 양적 결정자이다; 영적-중력 활동은 신성의 살아있는 에너지의 질적 척도이다.

12:8.6 (140.2) 물리적 창조에 대한 파라다이스의 관계, 영적 우주에 대한 영원한 아들의 관계는 마음의 영역들에 대한

공동 행위자의 관계—물질적, 모론시아적 그리고 영적 존재들 그리고 개인성들의 지능적 우주—와 같다.

12:8.7 (140.3) 공동 행위자는 물리적 그리고 영적 실체들 둘 모두에 반응하며 그러므로 모든 지능 존재들, 창조의 물질적 그리고 영적 위상들 둘 모두에 대해 연합을 나타낼 존재들에 대해 우주적 사명활동자가 된다. 지능의 자질, 마음의 현상에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명활동은 공동 행위자의 독자적 권역인데, 그래서 그는 영적 마음의 동반자, 모론시아 마음의 본질, 그리고 시간의 진화적 창조체들의 물질적 마음의 본질체가 된다.

12:8.8 (140.4) 마음은 그것으로 인하여 영 실체들이 창조체 개인성들에게 체험적인 것이 되어가는 기법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한 인간 마음의 통합하는 가능성들, 즉 사물, 관념 그리고 가치를 조화-협동하는 능력은 초물질적이다.

12:8.9 (140.5) 상대적 우주 실체의 일곱 차원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사자 마음에게 거의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인간 지성은 유한 실체의 세 기능 차원들의 의미를 많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2:8.10 (140.6) 1. 물질. 동작에 의해 변형되고 마음에 의해 조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선적 중력에 종속되는 조직화 된 에너지.

12:8.11 (140.7) 2. 마음. 전적으로 물질적 중력에 종속되지는 않는, 그리고 영에 의해 변형될 때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는 조직화된 의식.

12:8.12 (140.8) 3. 영. 가장 높은 개인적 실체. 참된 영은 물리적 중력에 종속되지 않지만, 결국에는 개인성 존엄에서의 모든 진화하는 에너지 체계에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영향력이 될 것이다.

12:8.13 (140.9) 모든 개인성들의 실존 목표는 영이다; 물질적 현시활동들은 상대적이고, 조화우주 마음은 이 우주적 대응물 사이에 있다. 마음의 증여와 영의 돌봄은 신(神)의 연관 개인들, 무한한 영과 영원한 아들의 활동이다. 전체 신(神) 실체는 마음은 아니지만 영-마음, —개인성에 의해 통합된 마음-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사물 둘 모두의 절대성이 우주 아버지의 개인 안에 한점으로 집중한다.

12:8.14 (140.10) 파라다이스에서는 세 에너지들, 물리적, 마음적, 영적인 것들이 조화-협동을 이룬다. 진화적 우주 안에서는 에너지-물질이 개인성 안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우세한데, 그곳에서는 마음의 중재를 통하여 영이 지배하려고 분투한다. 영은 모든 창조체들의 개인성 체험의 기초적 실체인데 왜냐하면 하느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영은 변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인성 관계들에 있어서 그것이 마음과 물질 둘 모두를 초월하는데, 그것들은 진보적 달성의 체험적 변수들이다.

12:8.15 (140.11) 조화우주적 진화에 있어서 물질은 신성한 깨우침의 영 발광체의 현존 안에서 마음에 의해 부여된 철학적 그림자가 되지만, 이것은 물질-에너지의 실체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마음, 물질, 그리고 영은 똑같이 실제적이지만, 그것들이 신성의 달성에 있어서 개인성에 대해 똑같은 가치가 되지는 않는다. 신성에 대한 의식은 진보적인 영적 체험이다.

12:8.16 (141.1) 영성화된 개인성(우주에 있는 아버지, 개별 창조체 안에 있는 잠재적 영 개인성의 단편)의 빛이 빛날수록 개재하는 마음에 의해 그것의 물질적 대상물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짙어진다. 시간 속에서 사람의 육신은 마음 또는 영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이지만, 죽음에 이르면 마음(정체성)과 영은 둘 모두 살아남는 반면 육신은 그렇지 않다. 조화우주적 실체는 개인성 체험 안에서 실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너희의 그리스 언어의 수사—물질은 좀 더 실제적인 영 본체의 그림자이다—가 철학적 의의(意義)를 갖는다.

제 9 장. 개인적 실체들

12:9.1 (141.2) 영은 우주들에서 기본적인 개인적 실체이며, 개인성은 영적 실체와의 모든 진보하는 체험에 있어서 기본이다. 우주 진보의 이어지는 모든 차원에서의 개인성 체험의 모든 위상은 매혹적인 개인적 실체들의 발견에 단서가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사람의 참된 운명은 새로운 영 목표의 창조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물질적 가치를 갖는 그러한 숭고한 목표들의 조화우주적 매혹에 응답하는 데에 있다.

12:9.2 (141.3) 사랑은 개인성들 사이의 유익한 관계적-연합의 비밀이다. 너희는 단 한 번의 접촉의 결과로 어떤 사람을 실제적으로 알 수 없다. 너희는 음악이 수학적인 어떤

형태의 리듬이라 하더라도 수학적 추론을 통해서는 음악의 진가를 알 수 없다. 전화 가입자에게 배정된 번호는 그 가입자의 개인성을 어떤 방법으로도 정체성을 확인하거나 그의 성격에 관해 어떤 의미도 나타내지 않는다.

12:9.3 (141.4) 수학, 물질과학은 우주의 물질적 측면들에 대한 지능적 토론에 필수적이지만, 그러한 지식이 진리의 보다 높은 실현 또는 영적 실체들에 대한 개인적 인식의 한 부분일 필요는 없다. 생명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물리적 에너지의 세계에서도,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들의 합은 그러한 연합의 예측 가능한 덧셈 결과 보다 더 어떤 것이거나, 또는 그것과 다른 어떤 것인 경우가 매우 종종 있다. 수학의 전체 과학, 철학의 전체 권역, 가장 높은 물리학 또는 화학은, 두 개의 수소 기체 원자들과 한 개의 산소 기체 원자의 연합이 어떤 새롭고도 질적인 초(超)덧셈의 본질—액체 물—로 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알 수도 없다. 하나의 이 물리화학적 현상에 대한 납득하는 지식은 물질적 철학과 기계적 우주론의 발달을 방해해 왔을 것이다.

12:9.4 (141.5) 기술적인 분석은 어떤 사람 또는 사물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타낼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물은 불을 끄는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물이 불을 끌 것이라는 사실은 일상적 체험의 결과이지만, 물에 대한 어떤 분석도 그러한 특성을 밝히는 데에 이용될 수 없었다. 분석은 그 물이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결정하며; 이 요소들에 대한 더 깊은 연구는 산소가 연소를 실제로 도와주고 수소는 스스로 자유롭게 타게 될 것을 알려준다.

12:9.5 (141.6) 너희 종교는 실제적인 것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두려움에 대한 노예 그리고 미신의 속박으로부터 창발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철학은 독단론과 전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투쟁한다. 너희의 과학은 진리와 잘못 사이에서 오랫동안 투쟁하는 한편 추상적 속박, 수학의 노예, 그리고 기계적 물질주의의 상대적 무지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싸운다.

12:9.6 (142.1) 필사 사람은 영 핵을 갖고 있다. 마음은 신성한 영 핵 둘레에 존재하는 그리고 물질적 환경 안에서 기능하는 개인적-에너지 체계이다. 개인적 마음과 영의 그러한 살아있는 관계는 영원한 개인성의 우주 잠재력을

구성한다. 실제적인 고난, 계속되는 실망, 심각한 패배, 또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은 자아-개념이 중앙의 영 핵의 지배하는 힘을 충분히 대치하려고 단언한 이후에만 올 수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개인성 정체성의 조화우주 기획이 붕괴하는 것이다

12:9.7 (142.2)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권한에 의해 활동하는 지혜의 완전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13 편 파라다이스의 성스러운 구체

13:0.1 (143.1) 중앙의 파라다이스 섬과 하보나 행성 순환회로들의 가장 안쪽 사이에는 특별한 구체들로 구성된 비교적 작은 세 순환회로들이 공간 안에 위치해 있다. 가장 안쪽 순환회로는 우주 아버지의 일곱 비밀 구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집단은 영원한 아들의 일곱 빛나는 세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외부는 무한한 영의 일곱 거대한 구체들, 일곱 주(主) 영들의 집행-본부 세계들로 되어 있다.

13:0.2 (143.2)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 세 일곱-세계 순환회로들은 최고의 장엄함과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구체들이다. 그것들의 물질적 또는 물리적 구조 역시

너희에게 계시되지 않은 계층에 속한다. 각 순환회로는 물질적으로 다양하고, 각 순환회로의 각 세계는, 물리적 구조에 있어서는 비슷한 아들의 일곱 세계들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다. 21개 모두는 거대한 구체들이며, 일곱 개의 각 집단은 서로 다르게 영원화 되었다. 우리가 아는 한 그것들은 항상 있어 왔다; 파라다이스와 마찬가지로 그것들도 영원하다. 그것들의 기원에 관해서는 기록이나 전승이 존재하지 않는다.

13:0.3 (143.3) 우주 아버지의 일곱 비밀 구체들은, 영원한 섬에 아주 근접된 상태에서 파라다이스를 돌고 있는데, 영원한 신(神)들의 중앙 발광체에 대한 영적 광채의 고도의 반영이며, 그것은 파라다이스에 두루 그리고 심지어는 하보나의 일곱 순환회로들 위에 신성한 영광의 이 빛을 발산한다.

13:0.4 (143.4) 영원한 아들의 일곱 신성한 세계들 위에서는 영 발광체의 미(未)개인적 에너지들이 기원되는 모습이 보인다. 어떤 개인적 존재도 빛나는 이 일곱 영역들 중 어느 곳에 머무를 수 없다. 영적 영광과 함께 그들은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전체를 밝혀주고, 그들은 일곱

초우주들을 향해 순수한 영 발광성을 방향화한다. 두 번째 순환회로에 속한 빛나는 이들 구체들도 마찬가지로 파라다이스를 향해 그리고 일곱-순환회로화된 중앙우주의 10억 세계들을 향해 그것들의 빛(열이 없는 빛)을 내뿜는다.

13:0.5 (143.5) 무한한 영의 일곱 세계들은 일곱 주(主) 영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은 일곱 초우주들의 운명(運命)을 관리하고, 시간과 공간의 이 창조계를 향해 신(神)의 셋째 개인의 영적 휘광을 내보낸다. 그리고 하보나 모두는, 그러나 파라다이스 섬은 제외하고, 영성화하는 이들 영향에 적시어 씻겨진다.

13:0.6 (143.6) 비록 아버지의 그 세계들이 모든 아버지-자질로서 부여된 개인성들을 위한 궁극적 지위의 구체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그들의 배타적 기능은 아니다. 개인적이지 않은 많은 존재들과 실존개체들이 이 세계들 위에 머문다. 아버지의 순환회로와 영의 순환회로 안에 있는 각 세계는 영구 시민신분에서의 뚜렷한 유형을 갖지만, 우리는 아들의 세계들에는 개인적-아닌-다른 존재의 획일적 유형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버지 단편들은 신성별 원주민들에 속한다; 영구 시민신분을 갖는 다른 계층들은 너희에게 계시되지 않는다.

13:0.7 (143.7) 21개의 파라다이스 위성들은 이 글들에서 밝혀지지 않은 중앙 그리고 초우주들 안에서 많은 목적에 봉사하고 있다. 너희가 이들 구체들의 삶에 대해 거의 납득할 수 없기에 너희는 그것들에 대해, 본성이나 기능에서나, 일관된 견해라고 할 만한 어떤 것도 얻을 희망이 없다; 너희에게 계시되지 않은 수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1개의 이들 구체들은 주 우주의 기능의 잠재들을 포용한다. 이 글들은 대우주—실은 대우주의 일곱 구역중 하나—의 현재 우주 시대의 일정한 제한된 활동들의 순간적인 언뜻 보기를 제공할 뿐이다.

제 1 장. 아버지의 성스러운 일곱 세계들

13:1.1 (144.1) 성스러운 생명 구체들의 아버지의 순환회로는 우주들의 우주에서 오직 선천적인 개인성 비밀들만을 품고있는 곳이다. 세 순환회로들 중 가장 안쪽에 있는, 파라다이스의 이 위성들은 중앙우주에서, 개인성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금지된 권역들이다. 아들의 세계들과

하부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로 개인성들에게 닫혀 있지만, 그러나 이들 권역들의 그 어떤 곳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인성과는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곳이 아니다.

13:1.2 (144.2)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세계들은 삼위일체 고정아들들의 가장 높은 계층, 최극위의 삼위일체화된 비밀들에 의해 지도를 받는다. 이 세계들 중 내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것들의 각가지 활동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정보는 그곳에서 기능하는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나가는 그 존재들과만 관계한다. 그리고 내가 비록 특별한 이 세계들 중 여섯 개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전적으로 나에게 금지되어 있는 신성별에는 결코 가 본 적이 없다.

13:1.3 (144.3) 이 세계들이 비밀로 되어있는 이유들 중 하나는 성스러운 이들 구체들 각각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신(神)들의 특정된 표현 또는 현시활동을 누리기 때문이다; 개인성이 아니라, 특별한 집단의 그 지능체들에 의해서만 식별되고 이해될 수 있는, 신성의 독특한 현존이 특별한 그 구체 위에 거주하거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최극위의 삼위일체화된 비밀들은 신성의 특유한 그리고 미(未)개인적인 이들 현존에 대한 개인적 대리자들이다. 그리고 최극위의 비밀들은 높은 개인적 존재들이며, 그들의 고양된 그리고 엄격한 활동에 뛰어나도록 자질로서 부여받았으며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적응되어 있다.

13:1.4 (144.4) 1. 신성별. 이 세계는, 독특한 개념에서, “아버지의 품”, 우주 아버지의 개인적-교제 구체며, 그곳은 그의 신성의 특별한 현시활동이다. 신성별은 생각 조절자들의 파라다이스 집합장소이지만, 또한 그것은 수많은 다른 실존개체들, 개인성들, 그리고 우주 아버지에서 기원되는 다른 존재들의 고향이기도 하다. 영원한 아들을 제외한 많은 개인성들은 우주 아버지의 독자적 행위에 의해 직접 기원된다. 오직 아버지 단편들과 그 개인성들 그리고 우주 아버지에서 직접적 그리고 배타적 기원을 갖는 다른 존재들만이 이 거주지에서 형제우애를 나누면서 기능한다.

13:1.5 (144.5) 신성별의 비밀 중에는 생각 조절자들의 증여와 임무의 비밀이 있다. 그들의 본성, 기원, 그리고 진화

세계들의 초라한 창조체들과의 그들의 접촉 기법은 이 파라다이스 구체의 비밀이다. 놀라운 이 활동행위들은 우리들 중 누구와도 개인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신(神)들은, 이 위대하고도 신성한 사명활동의 특별한 특징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납득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신성한 활동의 이 위상과 접촉하는 정도까지는, 우리는 이 활동행위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허락 받지만, 이 위대한 증여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배우지 못한다.

13:1.6 (145.1) 이 구체는 또한 아버지 단편들의 모든 다른 형태들, 중력 메신저들, 그리고 너희에게 계시되지 않은 다른 존재 무리의, 본질과 목적과 활동들의 비밀을 간직한다.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신성별에 속하고 있는 그 진리들이 만약에 계시된다면, 현재의 내 일에서 나를 거의 혼동시키고 방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 그것들이 내 계층의 존재의 개념적 수용력을 뛰어넘을 것이다.

13:1.7 (145.2)

2. 아들별. 이 구체는 “아들의 품”, 영원한 아들의 개인적 접수 세계이다. 그것은 그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최종적으로 허락을 받을 때 그리고 그 후에 하강하고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들의 파라다이스 본부이다. 이 세계는 영원한 아들의 모든 아들들과 그리고 그의 조화-협동 그리고 연관-동료 아들들의 파라다이스 고향이다. 그들은 우주들을 통한 그리고 파라다이스에 이르는 인간의 영적 진보라는 상승 기획의 계획들과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필사자들에게 계시된 바는 없는, 뛰어난 이 거주지들은 신성한 아들관계의 수많은 계층들에게 배정되어있다.

13:1.8 (145.3)

아들별의 비밀은 신성한 아들들의 육신화의 비밀이다.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될 때, 1,900년 전에 너희 세계에서 발생했듯이, 글자 그대로 여자로부터 태어날 때, 그것은 하나의 우주 신비이다. 그것은 바로 우주들에 두루 발생하며, 그것은 신성한 아들관계의 아들별 비밀이다. 조절자들은 아버지 하느님의 신비이다. 신성한 아들들의 육신화는 아들 하느님의 신비이다; 그것은 아들별의 일곱 번째 구역, 독특한 이 체험을 개인적으로 통과한 그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에, 고정되어 있는 비밀이다. 너희의 상승 생애와 반드시 관계되는 육신화의 그 위상들만이 너희에게 알려져 왔다.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우주 봉사의 임무들에 있어서 계시되지 않은 유형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육신화의 신비에 해당하는 많은 다른 위상들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또 다른 아들별 신비들이 있다.

13:1.9 (145.4) 3. 영성별. 이 세계는 “영의 품”, 무한한 영을 배타적으로 대표하는 높은 존재들의 파라다이스 고향이다. 이곳은 일곱 주(主) 영과 모든 우주로부터 온 일정한 그들의 자손이 함께 만나는 곳이다. 이 천상의 거주지에서는 또한 계시되지 않은 수많은 계층의 영 개인성들이 발견될 수도 있는데, 영원한 파라다이스 차원들을 향해 시간의 필사 창조체들을 증진시키는 계획들과 연관되지 않은, 우주의 각가지 활동들에 배정된 존재들이다.

13:1.10 (145.5) 영성별의 비밀은 반영성을 갖는 불가해한 신비를 포함한다. 우리는 반영성이라는 광대하고도 우주적인 현상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더욱 특별히 그것이 일곱

초우주들의 본부세계에서 작동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이 현상을 충분하게 설명해 본 적이 없다, 이는 우리가 그것을 충분하게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말로 매우 많은 것들을 깨닫지만, 많은 기본적 세부내용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비로 남아 있다. 반영성은 영 하느님의 비밀이다. 너희는 필사자 생존이라는 상승 기획과 관련된 반영성 기능들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있으며 또 그것은 것처럼 작동한다, 그러나 반영성은 또한 수많은 다른 우주 업무 위상들의 통상 활동의 불가결한 특징이기도 하다. 무한한 영의 이 자질은 지능을 모으고 정보를 살포하는 그러한 것과는 다른, 통로들로 활용된다. 그리고 영성별의 다른 비밀들이 있다.

13:1.11 (145.6) 4. 대관별. 이 행성은 "아버지와 아들의 품"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활동으로 기원된 어떤 계시되지 않은 존재들의 비밀 구체다. 이것은 또한 복잡한 선조의 많은 영화롭게 된 존재들, 일곱 초우주들 안에서 작동하는 많은 다양한 기법들 때문에 그 기원이 복잡하게 된 그들의, 파라다이스 고향이기도 하다. 그 정체성이 유란시아 필사자들에게 계시된 적이 없는, 여러 집단의 존재들이 이 세계에 모인다.

13:1.12 (146.1) 대관별의 비밀은 삼위일체화구현의 비밀을 포함하고, 삼위일체화구현은 하느님들의 대관으로 활동하는 권한, 삼위일체를 대표하는 권한의 비밀을 구성한다. 삼위일체를 대표하는 권한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어떤 둘 또는 셋 모두에 의해 삼위일체화 되거나, 창조되거나, 결국 생겨나거나, 또는 영원화된 그러한 존재, 계시되거나 계시되지 않았거나, 오직 그러한 존재들에게만 부여한다. 영화롭게 된 창조체들의 일정 유형에서의 삼위일체화 활동에 따라 존재로서 나오는 개인성들은, 비록 그러한 창조체들이 그들 부류의 모두에게 열린, 신(神) 포옹의 행로를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 삼위일체화 작용에 동원되어지는 개념적 잠재에서 더 이상은 대표할 수가 없다.

13:1.13 (146.2) 둘 또는 세 창조자들에 의해 혹은 일정한 창조체들에 의해 삼위일체화구현 되는 기법을, 삼위일체화 되지 않은 존재들은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다. 만약에 너희의 영화롭게 되는 생애의 먼 미래에서 그 어떤 모험 안에서 너희가 시도하여 성공하지 않는 한, 너희는 그러한 현상을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대관별의 이 비밀은 항상

너희에게 숨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삼위일체-
기원 존재, 나에게서는 대관별의 모든 구역들이 개방되어
있다. 나는 나의 기원과 운명의 비밀을 충분하게 납득하고
그리고 꼭 그와 같이 충분하게 그리고 성스럽게 보호한다.

13:1.14 (146.3) 유란시아 인류들의 관심이 아직까지 쏠린 적이
없었던 삼위일체화구현의 또 다른 형태들과 위상들이
여전히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들은, 그들의 개인적
측면들에서, 대관별의 비밀 구역 안에서 마땅히 보호되고
있다.

13:1.15 (146.4) 5. 단독자별. 이 세계는 “아버지와 영의 품”이고
우주 아버지와 무한한 영의 공동 행동에서 기원되는
계시되지 않은 존재들의 장엄한 무리, 그들의 영 상속물 뿐
아니라 아버지의 특색까지도 나눠가진 존재들의
집합장소이다.

13:1.16 (146.5) 이곳은 또한 단독 메신저들과 그 밖의 특급천사
계층의 다른 개인성들의 고향이기도 하다. 너희는 이
존재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유란시아에 계시되지
않는 엄청난 숫자의 계층들이 존재한다. 그들이 다섯 번째
세계에 거처가 정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단독 메신저들

또는 그들의 특급천사 연관-동료들의 창조에 무엇이건 행하는 것으로 여길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 우주 시대에, 그는 그들의 기능으로 행해야 될 것을 행하고 있다. 현재 우주 시대 동안 이것은 또한 우주 힘 지도자들의 지위 구체이기도 하다.

13:1.17 (146.6) 그 밖에 수많은 또 다른 영 개인성 계층들, 단독자별을 그들의 파라다이스 고향 구체처럼 여기는, 필사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존재들이 있다. 우주 활동들의 모든 분야들과 차원들이 자신의 신성한 파라다이스 운명으로 상승하는 필사 사람을 돕는 것에 관련된 영역이듯이, 그와 같이 충분하게 영 사명활동자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13:1.18 (146.7) 단독자별의 비밀. 삼위일체화구현의 어떤 비밀은 제외하고, 이 세계는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특정한 더 높은 후손들과 무한한 영의 개인적 관계의 비밀을 간직한다. 단독자별에서는 수많은 계시되지 않은 계층들이 아버지의, 아들의, 영의 영들과, 그리고 삼위일체의 삼중 영과, 그리고 최극자, 궁극자, 최극-궁극자의 영들과 친밀한 관계적-연합을 이루는 신비들이 간직되어 있다.

13:1.19 (146.8)

6. 천사별. 이 구체는 “아들과 영의 품”이고 아들과 영에 의해 창조된 계시되지 않은 존재들로 구성된 광대한 무리의 고향 세계이다. 이곳은 또한 초(超)천사, 2품천사, 그리고 세라핌천사를 포함하여, 천사 무리의 모든 사명활동하는 계층의 운명 구체이기도 하다. 중앙과 바깥 우주들 안에는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에게 사명활동하는 영들”이 아닌, 장엄한 영들의 많은 계층이 봉사한다. 우주 활동들의 모든 차원과 영역들 안에서 이 모든 영 일꾼들은 천사별을 자신들의 파라다이스 고향으로 여긴다.

13:1.20 (147.1)

천사별의 비밀은 삼중 신비, 그들 중 내가 언급할 수 있는 유일한 것—세라핌천사 운송의 신비—에 싸여있다. 다양한 계층의 세라핌천사 그리고 결연된 영 존재들이 그들의 영 형태 속으로 모든 비물질적 개인성계층을 감싸고 그리고 긴 행성 간 여행에 그들을 옮기는 능력은, 천사별의 성스러운 구역들 안에 잠겨있는 비밀이다. 그 운송 세라핌천사는 이 신비를 인식하지만, 그들 외에 우리에게는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데, 아마 할 수 없는 듯하다. 천사별의 다른 신비들은 아직 필사자들에게 계시되지 않은 여러 유형의 영 봉사자들의 개인적

체험들과 관계한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가까운 실존의 계층들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현상에 대한 우리의 부분적 지식조차도 제시하는 것은 신뢰를 배신하는 것에 가깝기에. 우리는 그렇게 가까이 관련된 존재들에 대해 논의하는 일을 삼가고 있다.

13:1.21 (147.2) 7. 상승자별. 독특한 이 세계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품", 공간의 상승하는 창조체들의 집합장소, 파라다이스를 향한 그들의 길에 하보나 우주를 통과해 지나가는 시간의 순례자들을 받아들이는 구체다. 상승자별은 시간과 공간의 상승하는 혼들이 파라다이스 지위를 달성할 때까지 그들의 실재적인 파라다이스 고향이다. 너희 필사자들은 너희의 하보나 "휴가들" 대부분을 상승자별에서 보낼 것이다. 너희의 하보나 생활동안, 상승자별은, 복귀 지도자들이 지역우주와 초우주 상승 기간 동안 되었던 것을, 너희에게 되여 줄 것이다. 여기에서 너희는 필사자 상상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수천가지의 활동에 종사할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상승에 서 그 이전에 이룬 모든 향상에 따라, 너희 인간 자아는 여기에서 너희의 신성한 자아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것이다.

13:1.22 (147.3)

상승자별의 비밀은 물질적이고 필사인 마음 안에서, 성격과 정체성의 영적이고 잠재적 불멸의 부분이 점진적이고도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신비를 포함한다. 이 현상은 우주들의 가장 복잡한 신비 중의 하나—필사 물질적인 창조체의 마음 안에서의 불멸 혼의 진화—를 이룬다.

13:1.23 (147.4)

너희는 상승자별에 도달하기 전에는 이 신비로운 활동행위를 결코 충분하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상승자별 전체가 너희의 경탄하는 눈앞에 열리게 되는 바로 그 이유이다. 상승자별의 7분의 1은 나에게 금지되어 있다—이와 관련된 구역은 너희와 같은 존재 유형의 배타적 체험과 소유물인 (또는 소유물이 될) 바로 그 비밀이다. 이런 체험은 너희 인간 실존의 계층에 속한다. 나의 개인성 계층은 그러한 활동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나에게 금지되어 있고 결국에는 너희에게 계시된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에게 계시된 이후라 하더라도,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것은 언제까지나 너희의 비밀로 남는다. 너희는 그것을 우리에게도 또한 어떤 다른 존재 계층에게도 알릴 수 없다. 우리는 신성한 조절자와 인간 기원의 불멸의 혼의 영원한

융합에 관하여 알지만, 상승하는 최종자는 바로 이 체험을 절대적 실체로서 안다.

제 2 장. 아버지-세계들의 관계

13:2.1 (147.5) 영적 존재들의 다양한 계층의 이 고향 세계들은 거대하면서도 엄청난 구체들이고, 그것들은 비길 데 없는 그 아름다움과 장엄한 영광에서 파라다이스에 필적될 만하다. 그것들은 집합장소의 세계들, 재결합 구체들이며, 영구한 조화우주 주소로서 쓰이고 있다. 최종자로서 너희는 파라다이스에 거처를 정하게 되겠지만, 상승자별은 언제든지, 심지어는 너희가 외부 우주에서 봉사에 들어갈 때에도, 너희의 고향 주소가 될 것이다. 모든 영원을 통하여 너희는 상승자별을 정서적인 기억과 추억에 잠긴 회상의 고향으로 간주할 것이다. 너희가 일곱 번째-단계의 영 존재들이 될 때, 아마 너희는 파라다이스에서의 너희의 거주 지위를 버릴 것이다.

13:2.2 (148.1) 만약에 외부 우주들이 조성되고 있다면, 만약 그것들이 상승 잠재의 시간 창조체들로 거주되어 있다면, 그러면 미래의 이 자녀들도 역시 상승자별을 그들의

파라다이스 고향 세계로 여기도록 운명되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한다.

13:2.3 (148.2) 상승자별은 파라다이스에 도착하면서 너희가 검열해볼 수 있도록 남김없이 개방될 유일한 성스러운 구체다. 대관별은 나의 정밀한 조사에 전적으로 그리고 남김없이 개방된 유일한 성스러운 구체다. 비록 그것의 비밀들이 나의 기원과 관련되더라도, 이 우주 시대에 있어서 나는 대관별을 나의 고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삼위일체-기원 존재들과 삼위일체화 존재들은 같지 않다.

13:2.4 (148.3) 삼위일체-기원 존재들은 아버지의 세계들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는다; 그들은 최고거룩구체에 아주 근접하는 파라다이스 섬 위에 그들의 독자적 고향을 갖는다. 그들은 종종 상승자별, "아버지-아들-영의 품"에 나타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공간의 낮은 세계들로부터 올라온 그들의 형제와 형제우애를 갖는다.

13:2.5 (148.4) 너희는 창조자 아들들, 아버지-아들 기원 존재들이 대관별을 그들의 고향으로 여기리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만, 칠중 하느님의 기능의 이 우주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너희를 당황하게 만들 많은 비슷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는 너희가 파라다이스에 매우 가까운 이 문제들을 납득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너희는 더욱 많은 어려움과 쉽게 마주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질문들을 성공적으로 추론할 수도 없음은 물론; 너희는 거의 알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의 세계들에 관하여 좀 더 알았다고 해도, 너희는 너희가 그것들에 관하여 모두 알게 되기 전에는 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뿐이다. 이 비밀 세계들 어느 곳에서든 그 지위는 기원의 본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봉사에 의해 획득되며, 이어지는 우주 시대들은 이들 개인성 집단화들 중 어떤 것을 재분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13:2.6 (148.5) 내부 순환회로의 세계들은 실재적인 거주구체라기 보다는 실제로 형제우애의 곧 지위의 세계들이다. 필사자들은 하나를 제외한 아버지의 세계들 각각에서 어떤 지위를 달성한다. 예를 들자면: 너희 필사자들이 하보나에 도달하였을 때, 너희가 최고의 환영을 받을 상승자별에 대한 출입허가를 받겠지만, 그러나 다른 여섯 곳의 성스러운 세계들로의 방문은 허락되지 않는다. 파라다이스 체제를 통과한 다음 그리고 너희가 최종의 무리단에 받아들여진 후에는, 너희가

상승자 일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들—그리고도 너희는 그 이상이기예, 너희는 아들별에 대한 출입허가를 받는다. 그러나 신성한 아들들의 육신화 비밀의 구역인, 아들별의 7분의 1은 항상 남아있게 되는데, 그곳은 너희가 조사할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 비밀은 하느님의 상승하는 아들들에게 결코 계시되지 않을 것이다.

13:2.7 (148.6) 결국에는 너희는 상승자별에 대한 충분한 접근. 그리고 신성별을 제외한 아버지의 다른 구체들에 대한 상대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최종자가 된 후에, 너희가 다섯 개의 추가적 비밀 구체들에 대한 출입허가를 받을 때에라도, 너희는 그러한 세계들의 모든 구역들을 방문하도록 허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너희가 “아버지의 오른편”에 분명하게 여러 번 서게 될 것이지만, 너희는 “아버지의 품”, 신성별의 해안에 상륙하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시간에 두루 생각 조절자들의 세계에는 너희 현존의 어떤 필요성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3:2.8 (149.1) 영 생명의 이 집합장소 세계들은 우리의 체험 영역을 전적으로 벗어나는 이들 구체의 위상에 들어가

보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요청받을 정도로 금지된 지역이다. 너희는 우주 아버지가 신(神) 완전 이신 것처럼 창조체 완전에 이를 수 있지만, 너희는 우주 개인성들의 다른 모든 계층들의 체험적 비밀들 모두를 알지 않아도 된다. 창조자가 자신의 창조체와의 체험적 개인성 비밀을 가질 때, 그 창조자는 영원한 확신 속에 그 비밀을 지킨다.

13:2.9 (149.2) 이 모든 비밀들은 짐작하건데, 최극위의 삼위일체화된 비밀들의 집합체에게 알려져 있다. 이들 존재들은 오직 그들의 특별 세계 집단에게만 충분히 알려져 있고; 다른 계층들에게는 거의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파라다이스에 도달한 후에, 너희는 상승자별을 지도하는 10명의 최극위의 비밀들을 알게 되고 열렬하게 사랑하게 될 것이다. 신성별을 제외하고, 너희는 상승자별에서처럼 그렇게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다른 세계들에서 또한 최극위의 비밀들에 대한 부분적 납득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13:2.10 (149.3) 최극위의 삼위일체화된 비밀들은, 그들의 이름이 시사하는 것처럼, 최극자와 관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궁극자에게 그리고 미래의 최극-궁극자에게

관련되어 있다. 이들 최극위의 비밀은 최극자의 비밀인 동시에 궁극자의 비밀이고, 또한 최극-궁극자의 비밀들이다.

제 3 장. 영원한 아들의 성스러운 세계들

13:3.1 (149.4) 영원한 아들의 빛나는 일곱 구체들은 순수-영(靈) 실존(實在)의 일곱 위상들의 세계들이다. 빛나는 이들 천체들은 파라다이스와 하보나의 삼중적(三重的) 빛의 근원이고, 그 영향은,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대부분 중앙우주에 한정된다.

13:3.2 (149.5) 개인성은 이 파라다이스 위성들 위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순수-영 거주지에 관계하여 필사자와 물질적 개인성에게 제시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우리는 이 세계들이 영원한 아들의 존재들의 개인성-이외-다른 생명으로 충만 되어 있다고 배웠다. 우리는 이 실존개체들이 외부 우주의 구체적으로 투사된 새 우주 안에서 사명활동을 위해 모이고 있다고 들었다. 파라다이스 철학자들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약 20억년이 되는, 각각의 파라다이스 주기마다 영원한 아들의 그 비밀

세계들에서 이 계층들에 해당하는 추가적 예비들이 창조되는 것을 본다고 주장한다.

13:3.3 (149.6) 내가 아는 한, 영원한 아들의 이 구체 중 어느 곳에도 개인성이 전혀 존재한 적이 없었다. 나는 파라다이스의 안과 밖에서의 나의 모든 긴 체험에서 이 세계들 중 어느 하나에도 방문하도록 배정된 적이 없다. 심지어는 영원한 아들에 의해 공동 창조된 개인성들도 이 세계들로 가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유형의 미(未)개인적 영들이—비율에 상관없이—영 고향에 가도록 허용된다고 추측한다. 나는 개인이고 그리고 영 형태를 가졌으므로, 설혹 그곳에 방문해 가 보도록 허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어 있고 황폐한 것처럼 보일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높은 영 개인성들은 무의미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 순전히 쓸모없는 모험심에 몰두하지 않는다. 무익하거나 실제적이지 않은 그러한 구체적인 투사들에 대한 어떤 큰 흥미를 발전시키도록 허락하기에는 너무나도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모험여행이 항상 있다.

제 4 장. 무한한 영의 세계들

13:4.1 (149.7) 하보나의 내부 순환회로와 영원한 아들의 빛나는 구체들 사이에는 무한한 영의 자손들이, 영화롭게 된 피조 개인성들의 삼위일체화 아들들이, 그리고 우주 활동들의 다양한 영역의 많은 사업의 효력적인 관리-행정에 관여하는 계시되지 않은 존재들의 기타 유형들이 거주하는 세계들, 무한한 영의 일곱 천체들이 돌고 있다.

13:4.2 (150.1) 일곱 주(主) 영들은 무한한 영의 최극 그리고 궁극 대표자들이다. 그들은 파라다이스의 가장자리에 그들의 개인 거점들, 그들의 힘 진원지를 유지하지만, 대우주에 대한 그들의 관리와 지도에 관련된 모든 운영들은 무한한 영의 이 일곱 특별 집행 구체들에서 그리고 그로부터 행위로서 수행된다. 일곱 주(主) 영들은, 실체로서, 우주들의 우주의 마음-영 평형 바퀴, 모든 것을-포용하는, 모든 것을-에워싸는, 그리고 모든 것을-조화-협동시키는 중앙 위치의 힘이다.

13:4.3 (150.2) 주(主) 영들은 이 일곱 개의 특별한 구체들로부터 대우주의 조화우주-마음 순환회로들을 동등하게하고 안정시키려고 일한다. 또한 그들은 대우주에 두루 신(神)들의 서로 다른 영적 태도와 현존과 더불어 행할

수밖에 없다. 물리적 반작용들은 균일하고 변함이 없으며 항상 즉시적이고 자동적이다. 그러나 체험적인 영적 현존은, 영역들의 개별존재 마음 안에 선천적인, 영적 접수성의 기초를 이루는 조건이나 상태에 따르는 것이다.

13:4.4 (150.3) 모든 우주들에서, 크고 작던, 물리적 권한, 현존 그리고 기능들은 변경하지 않고 있다. 영적 현존 또는 반응에서 차이 나는 요소는, 의지 창조체들이 그 인식과 수용에서 동요하고 있는 차이들이다. 절대적이고 실존적인 신(神)의 영적 현존이, 창조된 존재들 편에서의 충성 또는 불 충성 태도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이와 동시에 하위-절대이고 체험적인 신(神)의 기능적 현존은, 그러한 유한 피조 존재들의 결정, 선택 그리고 의지-태도에 의해—개별 존재, 행성, 체계, 별자리, 또는 우주의 충성과 헌신에 따라—확실하고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성의 영적 현존은 예측불허이거나 제멋대로가 아니다; 그것의 체험적 변화는 개인적 창조체들의 자유의지 자질에 선천적인 것이다.

13:4.5 (150.4)

영적 현존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너희들 자신의 가슴과 마음 속에 있으며 그리고 너희 자신의 선택의 방법에, 너희 마음의 결정에, 그리고 너희 자신의 의지의 결심에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적 개인 존재들, 곧 이러한 선택의 해방을 행사할 우주 아버지가 정한 바 있는 존재들의 자유의지 반응에서 선천적인 것이다. 그리고 신(神)들은 창조체 선택에서의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조건에 따르고 요구를 만족시킴에 있어서 자신들의 영의 밀물과 썰물을 내보낼 때 언제까지나 진실하다, 자신들의 창조체가 자신들이 신성하게 증여한 선택의 자유를 행사할 때 진지한 갈망에 응답하여 더욱 더 자신들의 현존을 즉시 증여하고, 마찬가지로 그만큼 역으로 결정하는 무대에서는 되돌아 자신들을 철수시킨다. 그렇게 신성의 영은 영역의 창조체들의 선택에 겸손하게 순종한다.

13:4.6 (150.5)

일곱 주(主) 영들의 집행적 거주지들은, 실체이며, 일곱 초우주들과 외부 공간 안에서 그들에 상관관계된 부분들의 파라다이스 본부이다. 각 주(主) 영은 하나의 초우주를 주재하며, 이 일곱 세계들 각각은 그 주(主) 영들 중 하나에 배타적으로 배정되어 있다. 이 집행적

세계들에서 돌보고 있지 않은 일곱 초우주의 하위(下位)-파라다이스 관리-행정의 위상은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아버지의 구체들 또는 아들의 구체들처럼 배타적이지는 않으며, 비록 거주 지위가 토착 존재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그들에게 한정되어 있지만, 이 일곱 관리-행정적 행성들은 그곳을 방문하고자 하는, 그리고 통행에 필요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항상 열려 있다.

13:4.7 (151.1) 나에게, 이들 집행 세계들은 가장 흥미로운 그리고 호기심을 자아내는 파라다이스 외부 지점들이다. 어떤 다른 장소에서도, 그렇게 수많은 다양한 차원들, 동시에 물질적, 지적 그리고 영적 업무들에서 운영을 행해야하는 많은 서로 다른 계층의 살아있는 존재들이 포함되는, 그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누군가가 관찰할 수 있는 곳은 넓은 우주 안에서는 없다, 내가 직책으로부터 일정기간 풀려 날 때, 만일 어쩌다가 내가 파라다이스 또는 하보나에 있다면, 나는 대개 이 일곱 주(主) 영들의 바쁜 세계들 중 하나에 가고, 그곳에서 그러한 사업, 헌신, 충성, 지혜, 그리고 효율성의 광경들로 나의 마음이 영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 나는 우주 실체의 모든 일곱

차원들에서 벌어지는 개인성 행위의 그러한 놀라운 상호작용을 다른 어느 곳에서도 관찰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자신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그리고 그것을 하기를 그렇게 철저하게 즐기는 그들의 활동에 의해 항상 자극을 받는다.

13:4.8 (151.2) [유버사에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로부터 이렇게 기능하라고 명령을 받은 지혜의 완전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14 편 중앙이며 신성한 우주

14:0.1 (152.1) 완전하고도 신성한 우주가 모든 창조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그 둘레에 시간과 공간의 광대한 창조계들이 회전하고 있는 영원한 핵이다. 파라다이스는 장엄한 영원 우주의 바로 중심부에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절대 안정성의 거대한 핵심 섬이다. 이 중앙 행성 가족은 하보나라고 불리며 네바돈이라는 지역우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그것은 거대한 규모와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질량을 가지며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움과 엄청난 장관을 이루는 10억 개의

구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광대한 창조의 규모는 실제로 인간 마음의 납득, 파악을 뛰어 넘어서는 실체이다.

14:0.2 (152.2) 이것은 하나이며 유일한 정착되고 완전하고 확립된 세계들의 집단이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창조된 완전한 우주이다; 진화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완전의 영원한 핵이며, 그 둘레에는 거대한 진화적 실험 곧, 원형틀 우주, 신성한 완성의 이상, 최극적 최종, 궁극적 실체, 그리고 영원한 완전을 시간 속에서 복제하고 그리고 공간 속에서 재생산하려고 열망하는 하느님의 창조자 아들들의 대담한 모험을 구성하는, 그러한 진화적 실험을 이루고 있는 우주들의 끝없는 행렬이 조용돌이치고 있다.

제 1 장. 파라다이스-하보나 체계

14:1.1 (152.3) 파라다이스의 가장자리로부터 일곱 초우주들의 내부 경계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일곱 공간 조건들과 운동들이 있다:

14:1.2 (152.4) 1. 파라다이스에 맞닿은 정지된 중간-공간 지대.

14:1.3 (152.5) 2. 세 파라다이스 및 일곱 하보나 순환회로들의 시계방향 행렬.

14:1.4 (152.6) 3. 중앙우주의 암흑중력체들로부터 하보나 순환회로들을 구분시키는 반(半)고요 공간 지대.

14:1.5 (152.7) 4. 암흑중력체들의 시계반대방향-움직임 띠. 내부,

14:1.6 (152.8) 5. 암흑중력체들의 두 공간 경로를 구분하는 독특한 두 번째 공간 지대.

14:1.7 (152.9) 6. 파라다이스 둘레를 시계방향으로 도는, 암흑중력체들의 외부 띠.

14:1.8 (152.10) 7. 세 번째 공간 지대—반(半)고요 지대—, 일곱 초우주들의 가장 안쪽 순환회로들과 암흑중력체들의 외부 띠를 분리시키는 것

14:1.9 (152.11) 하보나의 10억 개 세계들은 파라다이스 위성들의 세 순환회로들을 곧 바로 감싸고 있는 일곱 동심(同心) 순환회로들 속에 배열되어 있다. 가장 안쪽의 하보나 순환회로에는 3,500만개를 상회하는 세계들이 있고 가장 외부에는 2억 4,500만개 이상이 있으며, 그 사이에 비례하는 숫자가 있다. 각 순환회로가 다르지만, 전체는 완전하게 균형이 잡혀있고 절묘하게 조직되어 있으며, 각각에는 무한한 영의 특정화된 대표파견, 순환회로의

일곱 영 중의 한 분으로 가득 퍼져있다. 다른 기능들
이외에, 이 미(未)개인적 영은 각 순환회로에 두루
천상(天上) 관련사들의 행위성을 조화-협동시킨다.

14:1.10 (153.1) 하보나 행성의 순환회로들은 겹쳐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의 세계들은 계층적으로 직선 행렬에서
서로 따른다. 중앙우주는, 10개의 안정된 동심(同心)
단위—파라다이스 구체의 세 순환회로와 하보나 세계들의
일곱 순환회로들—를 이루면서 하나의 거대한 평면으로
고정된 파라다이스 섬 둘레를 소용돌이치고 있다.
물리적으로 볼 때, 하보나와 파라다이스 순환회로들은
모두 하나이고 동일한 체계이다; 그들의 분리는 기능적
그리고 행정-관리적 격리를 인정하는 데에 있다.

14:1.11 (153.2) 시간은 파라다이스에서 인지되지 않는다;
이어지는 사건들의 순차는 중앙 섬에 토착민인 자들의
개념에서 선천적이다. 그러나 시간은 하보나
순환회로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천상과 땅 그
모두에서 기원하는 수많은 존재들과 밀접하게 관계한다.
각각의 하보나 세계는 그 순환회로에 의해 결정되는 그
자체의 지역시간을 갖고 있다. 주어진 순환회로 안에 있는

모든 세계들은 1년의 기간이 같은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파라다이스 둘레를 일정하게 휘돌아 회전하기 때문이며,
이 행성 한 해의 길이는 가장 외부로부터 가장 내부
순환회로를 향해 줄어든다.

14:1.12 (153.3) 하보나-순환회로 시간을 제외하고, 무한한 영의
일곱 파라다이스 위성들에서 결정된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보내지는 파라다이스-하보나 표준일 그리고 기타 시간
명칭들이 있다. 파라다이스-하보나 표준일은 하보나
순환회로의 첫 번째 곧 내부 순환회로의 행성 거주지들이
파라다이스 섬 둘레를 한 바퀴 완료하는데 요구되는 시간
길이에 기초를 둔다, 그리고 그들 속도가 크긴 하지만,
암흑중력체들과 거대한 파라다이스 사이에 자리 잡은
덕분에, 이들 구체들은 자신들의 순환회로를
완성하기까지 거의 1,000년이 소요된다. 너희는 “밤에 한
번 보는 것처럼, 하느님께는 하루가 천년과 같다”는 말에
너희 눈이 멈추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었을 것이다.
파라다이스-하보나 1일은 현재 유란시아 윤년 달력으로
1,000년보다 7분, 3과 8분의 1초만큼 짧다.

14:1.13 (153.4) 일곱 초우주들 각각이 비록 그 자신의 내부적 시간 표준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파라다이스-하보나 하루는 표준시간 측정값이다.

14:1.14 (153.5) 이 광대한 중앙우주의 변두리, 하보나 세계들의 일곱 번째 띠보다 멀리 있는 바깥쪽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의 거대한 암흑중력체들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 거대한 암흑 질량들은 많은 항목에서 다른 공간체들과 매우 다르다; 심지어는 형태에 있어서도 그들은 많은 차이가 있다. 이 암흑중력체들은 빛을 반영하지도 흡수하지도 않는다; 그것들은 물리적-에너지 빛에 반응하지 않고, 그것들은 하보나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에워싸고 뒤덮기 때문에 가까운 시간과 공간의 거주민이 사는 우주들조차도 보는 것이 감추어져 있다.

14:1.15 (153.6) 암흑중력체들의 거대한 띠는, 독특한 공간 침입에 의해 동등한 두 타원형 순환회로들로 나뉜다. 내부 띠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외부 띠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 이 교대되는 운동 방향은, 암흑체들의 엄청난 질량과 합하여, 하보나 중력선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균등하게 함으로서.

중앙우주로 하여금 물리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완전하게 안정된 창조가 되게 한다.

14:1.16 (153.7) 암흑중력체들의 내부 행렬은 배열에서 관 형태를 이루고 있고, 세 개의 순환적인 집단을 이룬다. 이 순환회로의 횡단 부분은 거의 같은 밀도의 세 동심원들로 보일 것이다. 암흑중력체들의 외부 순환회로는 수직으로 배열되는데, 내부 순환회로보다 10,000배 더 높다. 외부 순환회로의 위-아래 직경은 가로지르는 직경의 그것보다 50,000배에 달한다.

14:1.17 (154.1) 중력체들의 이 두 순환회로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은 광대한 전체 우주 어느 곳에서도 그것과 비슷한 것이 전혀 없을 정도로 독특하다. 이 지대는 오르내리는 본성을 갖는 거대한 파동 운동으로 특징을 보이며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계층의 엄청난 에너지 활동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14:1.18 (154.2) 우리 견해로는, 중앙우주의 암흑중력체들과 같은 것은 아무 것도 외부 우주 차원들의 미래 진화를 특징짓는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놀랄만한 중력-평형 본체들의

이들 교대 행렬이 주(主)우주 에서 독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 2 장. 하보나의 구조

14:2.1 (154.3) 영 존재들은 성운 공간에 거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기와 같은 세계에 거주하지 않는다; 그들은 물질적 본성의 실재적 구체, 필사자들이 살고 있는 그것들과 똑같이 실제 세계에서 산다. 하보나 세계들은 실재적이고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사실적 본체는 일곱 초우주 행성들의 물질 조직과는 다르다.

14:2.2 (154.4) 하보나의 물리적 실체들은 공간의 진화 우주들 안에 가득 퍼져있는 그 어떤 것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에너지 조직 계층을 대표한다. 하보나 에너지들은 삼중(三重)적이다; 에너지-물질의 초우주 단위들은, 에너지의 한 형태가 음성과 양성 위상으로 존재하지만, 이중적 에너지 전하(電荷)를 띤다. 중앙우주의 창조는 삼중적(삼위일체)이다;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에 의한 지역우주의 창조는(직접적으로) 이중적이다.

14:2.3 (154.5) 하보나의 물질은 정확하게 1,000개의 기초 화학 원소들의 조직과 하보나 에너지의 일곱 형태의 균형 잡힌

기능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기초 에너지들은 일곱 위상의 자극작용을 현시하는데, 그리하여 하보나 원주민들은 49개의 서로 다른 감각작용 총동에 응답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순수한 물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중앙우주의 원주민들은 감각작용에서의 49개의 특별한 형태들을 갖는다. 모론시아 감각들은 70개이고, 더 높은 영적 반응 계층들은 응답이 존재의 서로 다른 유형에서 70개에서 210개까지 변한다.

14:2.4 (154.6) 중앙우주의 어떤 물리적 존재들도, 유란시아인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그 세계들의 어떤 물리적 자극도 너희의 조잡한 감각 기관 안에 어떤 반응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만일 유란시아 필사자가 하보나로 옮겨질 수 있다면, 그는 거기에서 귀가 멀고 앞을 보지 못하며 모든 다른 감각 반응을 철저히 잃어버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 모든 환경 자극과 그에 따른 모든 반응을 빼앗긴, 한정된 자아-의식 존재로서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14:2.5 (154.7) 중앙 창조에는, 유란시아와 같은 세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물리적 현상들과 영적 반응들이

있다. 삼중(三重) 창조의 기본 조직은 시간과 공간에 속하는 피조 우주들의 이중적 구조의 그것과 전적으로 다르다.

14:2.6 (154.8) 진화하고 있는 창조계의 이원(二元)-에너지 체계에 비해서는 전적으로 다른 기초 위에서 모든 자연 법칙이 조화-협동된다. 중앙우주 전체는 완전하고도 대칭된 통제와 삼중적 체계에 따라서 조직되어 있다. 전체 파라다이스-하보나 체계에 두루, 모든 조화우주 실체들과 모든 영적 기세들 사이에 완전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파라다이스는, 물질적 창조에 대한 절대적 장악과 함께, 이 중앙우주의 물리적 에너지들을 완전하게 규제하고 유지한다; 영원한 아들은, 그의 전체를-포용하는 영 장악의 일부로써, 하보나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의 영적 지위를 가장 완전하게 지탱한다. 파라다이스에서는 어떤 것도 실험적이지 않으며, 파라다이스-하보나 체계는 창조적 완전의 단위이다.

14:2.7 (155.1) 영원한 아들의 우주적인 영적 중력은 중앙우주에 두루 놀라운 정도로 활동적이다. 모든 영 가치들과 영적 개인성들은 하느님들의 거주지를 향해 안쪽으로 끊임없이

당겨진다. 하느님을 향한 이 충동은 강렬하고 회피할 수 없다. 하느님께 도달하고자 하는 열정이 중앙우주에서 더 강한 것은, 영 중력이 밖에 있는 우주들보다 더 강해서가 아니라, 하보나에 도달한 그 존재들이 더욱 충만하게 영성화 되고 그리하여 영원한 아들의 당기는 우주 영-중력의 언제까지나-제시되어있는 활동에 더욱 많이 응답하기 때문이다.

14:2.8 (155.2) 마찬가지로 무한한 영도 모든 지적 가치들을 파라다이스 쪽으로 끌어당긴다. 중앙우주에 두루, 무한한 영의 마음 중력이 영원한 아들의 영 중력과 의 연락 안에서 기능한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 하느님을 발견하고, 신(神)을 달성하고, 파라다이스를 성취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알려고 하는 상승하는 혼들의 병합된 충동을 구성한다.

14:2.9 (155.3) 하보나는 영적으로 완전하고 물리적으로 안정된 우주이다. 중앙우주의 통제와 균형 잡힌 안정성은 완전한 것처럼 보인다. 물리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것은 완전하게 예견될 수 있지만, 마음 현상과 개인성 의지작용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죄가 발생 불가능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고

추론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보나의 원주민 자유의지 창조체들이 신(神)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결코 지은 적이 없다는 근거 하에서이다. 영원에 두루 이 뛰어난 존재들은 영원으로 늘 계신이에게 일관되게 충성을 바쳐왔다. 뿐만 아니라 순례자로서 하보나에 들어온 어떤 창조체도 잘못된 행위성을 나타낸 적이 없다. 하보나 중앙우주에서 창조된 또는 거기에 들어오도록 허락된 개인성들의 어떤 집단에 해당하는 어떤 창조체도 부정을 범한 예가 결코 없었다. 시간의 우주들에서의 선택의 방법과 수단들이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신성하기 때문에 하보나의 기록에 따르면 어떤 잘못도 발생한 적이 없었다; 어떤 오류도 범해진 적이 없다; 어떤 상승하는 혼도 미숙한 상태로 중앙우주에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제 3 장. 하보나 세계들

^{14:3.1 (155.4)} 중앙우주의 정부에 관해 말하면, 거기에는 아무 것도 없다. 하보나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완전하기 때문에 정부라는 지적 체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법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 회의도 없다; 하보나는 오직 행정-관리적 지도만을 요구한다.

여기에서는 참된 자아-관리의 이상들의 정점이 관찰될 수 있다.

14:3.2 (155.5) 그렇게 완전한 그리고 거의-완전한 지능체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필요하지 않다. 그들에게는 규정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는 그들이 초우주들의 최극 법정의 정밀검사를 오래 전에 통과한 진화 창조체와 섞여있는 태생적으로 완전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14:3.3 (155.6) 하보나의 관리-행정은 자동은 아니지만, 놀라울 정도로 완전하고 신성하게 효과적이다. 그것은 주로 행성 단위로 그리고 거주하는 영원으로 늘 계신이에 주어져 있다, 각 하보나 구체는 이들 삼위일체-기원 개인성들 중 하나에 의해 지도를 받는다. 영원으로 늘 계신이들은 창조자는 아니지만, 완전한 관리-행정자이다. 그들은 최극 기술로 가르치고 절대성에 가까운 지혜의 완전으로 그들의 행성자녀들을 지도한다.

14:3.4 (156.1) 중앙우주의 10억 구체들은 파라다이스와 하보나에서 태어난 높은 개인성들에 대한 훈련 세계들을 구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진화적인 시간 세계들로부터 상승하는 창조체들을 위한 최종적 증명 장소로 쓰인다.

창조체 상승이라는 우주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시간의 순례자들이 일곱 번째 순환회로의 외부 곧 접수세계들 위에 도착하며, 증가된 훈련과 커지게 된 체험에 뒤이어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신(神)을 달성하고 파라다이스에서의 거주를 성취할 때까지, 그들은 이 행성에서 저 행성으로 그리고 순환회로에서 순환회로로, 안쪽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진보하며 나아간다.

14:3.5 (156.2) 현재, 일곱 순환회로의 구체들이 그들의 모든 숭고한 영광 속에 유지되고 있지만, 모든 행성 수용력 중 오직 1퍼센트만이 필사자 상승이라는 아버지의 우주적 계획을 촉진시키는 일에 활용된다. 이 거대한 세계들의 1퍼센트 중 약 10분의 1지역은, 하보나 세계들 위에 종종 머물고 사명활동하는 빛과 생명 속에 영원히 정착된 존재들, 최종의 무리단의 삶과 활동에 전념되어 있다. 이들 드높여진 존재들은 파라다이스 위에 그들의 개인 거주지를 갖는다.

14:3.6 (156.3) 하보나 구체들의 행성 구조는 공간의 진화 세계들과 체계들의 그것과는 전반적으로 다르다. 모든

대우주 안에서 어느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거대한 구체들을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로 활용하기에 편리한 곳은 없다. 삼력소(三力素) 물리적 구조물은, 거대한 암흑중력체들의 평형 효과와 함께, 물리적 기세들을 너무나도 완전하게 균등하게 만들고 이 거대한 창조의 다양한 인력(引力)들을 너무나도 정교하게 평형 시킬 수 있게 한다. 반(反)중력도 또한 물질적 기능의 조직에 그리고 이 거대한 세계들의 영적 활동에 이용된다.

14:3.7 (156.4) 하보나 구체들의 생물학적 그리고 예술적 장식물들과 마찬가지로 그 고안건축물, 빛 그리고 열은 인간의 상상이 뻗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을 훨씬 벗어난다. 하보나에 대하여 너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납득하려면 직접 보는 수밖에 없다. 허지만 이 완전한 세계들에 실제 강과 호수들이 있다.

14:3.8 (156.5) 영적으로 볼 때 이 세계들은 이상적으로 설비를 갖추고 있다; 그것들은 중앙우주 안에서 기능하는 서로 다른 존재들의 수많은 계층들을 지내게 하는 그들의

목적에 안성맞춤이다. 인간의 이해력을 크게 뛰어넘는
각가지 활동들이 이 아름다운 세계들에서 이루어진다.

제 4 장. 중앙우주의 창조체

14:4.1 (156.6) 하보나 세계들에는 기본적인 일곱 가지 형태의
살아있는 물체와 존재들이 있으며, 이 기본 형태들 각각은
세 가지 다른 위상으로 존재한다. 이 세 위상들 각각은
70개의 큰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각 큰 부분은 1,000개의
작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또 다른 하위 부분들이
계속 존재한다. 이 기본 생명 집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14:4.2 (156.7) 1. 물질적.

14:4.3 (156.8) 2. 모론시아적.

14:4.4 (156.9) 3. 영적.

14:4.5 (156.10) 4. 아(亞)절대적.

14:4.6 (156.11) 5. 궁극적.

14:4.7 (156.12) 6. 상호 절대적.

14:4.8 (156.13) 7. 절대적.

14:4.9 (157.1) 하보나 세계들에서는 쇠퇴와 죽음이 생명의 순환주기의 일부분이 아니다. 중앙우주에서 보다 낮은 살아있는 물체들은 물질화의 변형을 겪는다. 그들은 형태와 현시활동을 바꾸지만, 쇠퇴와 세포의 죽음의 과정으로 분해되지는 않는다.

14:4.10 (157.2) 하보나 원주민들은 모두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자손이다. 그들에게는 창조 부모들이 없으며 재생산을 하지 않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중앙우주의 이들 시민, 전혀 창조된 바가 없는 존재들의 창조를 설명할 수 없다. 하보나의 창조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필사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듯 시간이나 공간과 관계가 없는 하나의 영원 사실을 시간-공간에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 철학에 기원의 출발점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인간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개인성들도 "시작"이라는 개념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다이스-하보나 체계는 영원하다.

14:4.11 (157.3) 하보나의 원주민들은, 영구 시민의 다른 계층들이 그들의 태어난 해당구체에 거주한다는 동일한 감각에서,

중앙우주의 10억 구체들 위에서 산다. 아들관계를 갖는 물질적 계층의 존재들이 초우주 안에서 10억 지역체계들의 물질적, 지적, 그리고 영적 질서위에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것처럼, 좀 더 큰 개념에서, 하보나 원주민들은 중앙우주의 10억 세계들 위에서 살고 기능한다. "물질적"이란 말이 신성한 우주의 물리적 실체들을 묘사하도록 확대될 수 있다는 감각에서는, 너희는 이 하보나 존재들을 물질적 창조체들로 볼 수도 있다.

14:4.12 (157.4) 하보나에서 출생하고 그 자체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의의(意義)를 갖는 삶이 있다. 하보나인 들은 파라다이스 하강자들과 그리고 초우주 상승자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사명활동하지만, 그들은 또한 중앙우주에 독특한 그리고 파라다이스 또는 초우주들과는 상당히 독립된 상대적 의미를 갖는 삶들을 산다.

14:4.13 (157.5) 진화 세계들의 신앙 아들들의 경배가 우주 아버지의 사랑의 만족에 대한 사명활동과 마찬가지로, 하보나 창조체들의 드높여진 찬미는 그렇게 신성한 아름다움과 진리의 완전한 이상들을 만족하게 한다. 필사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분투하듯이, 중앙우주의 이 존재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이상들에 만족하려고 산다. 그들의 바로 그 본성에서, 그들은 하느님의 뜻이다. 사람은 하느님의 선(善) 안에서 기쁨을 향유하고, 하보나인 들은 신성한 아름다움 안에서 환희를 누린다, 한편 너희 모두는 살아있는 진리의 해방의 사명활동을 모두 누린다.

14:4.14 (157.6) 하보나인 들은 선택적인 현재 운명과 계시되지 않은 미래 운명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앙우주에만 특별히 있는 고유한 원주민 창조체들의 진보, 파라다이스를 향한 상승도 아닐 뿐만 아니라 초우주들로의 진출도 아닌 것에 관계된 진보가 있다. 상급 하보나 지위로 이르는 이 진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도 있다:

14:4.15 (157.7) 1. 첫 번째로부터 일곱 번째 순환회로까지 밖으로 향한 체험적 진보.

14:4.16 (157.8) 2. 일곱 번째로부터 첫 번째 순환회로까지 안으로 향한 진보.

14:4.17 (157.9)

3. 순환회로내부 진보—주어진 순환회로 세계들
안에서의 진보.

14:4.18 (157.10)

하보나 원주민들 이외에, 중앙우주의 거주자들은
다양한 우주 집단들—창조계에 두루 그들 부류에 대한
그리고 그들 부류에서의 충고자들, 지도자들, 그리고
선생들—을 위한 원형틀 존재의 수많은 등급을 포용한다.
모든 우주들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보나의 10억
세계의 어떤 하나에 살고있는 원형틀 창조체의 어떤
하나의 계층의 계통을 따라 모양이 갖추어진다. 심지어
시간의 필사자들도 높은 곳에 있는 이들 원형틀 구체의
외부 순환회로 위에, 창조체 실존의 그들의 목표와
이상들을 가진다.

14:4.19 (157.11)

그 다음에, 우주 아버지께 도달한 그러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며, 특별한 봉사 임무를 띠고 우주들 안에서
여기저기에 배정된다. 그리고 모든 하보나 세계에서는,
달성 후보자들이 발견될 것인데, 그들은 중앙우주에
물리적으로 달성된 존재들이지만, 그들로 하여금

파라다이스 거주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들 영적 발전을 아직 성취하지 못한 존재들이다.

14:4.20 (158.1) 무한한 영은 한 무리의 개인성들, 중앙우주의 복잡한 지적 그리고 영적 관련사들의 세부사항들을 관리-운영하는, 은혜와 영광의 존재들에 의해 하보나 세계들에서 대표된다. 신성한 완전의 이들 세계에서, 그들은 이 광대한 창조의 일상적 처리행위에 대한 토착적인 일을 수행하고, 덧붙여서, 우주의 어두운 공간 세계들로부터 영광을 향해 오르고 있는 엄청난 수의 상승하는 창조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돌보는 각가지 과업들을 수행한다.

14:4.21 (158.2) 창조체 완전 성취라는 상승 기획과 어떤 면으로도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은, 파라다이스-하보나 체계에 고유한 수많은 집단의 존재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필사 종족들에게 제시된 개인성 분류로부터 제외되어 있다. 초인간 존재들 중 오직 주요 집단들과 너희의 생존 체험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 계층들만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다.

14:4.22 (158.3) 하보나는, 거기에서 최극 의미들, 궁극 가치들 그리고 절대 실체의 신성 실현과 커진 인식의 보다 높은 차원들을 달성하려는 그들의 노력으로 낮은 순환회로부터 높은 순환회로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모든 위상의 지능 존재들의 창조체로 가득 차 있다.

제 5 장. 하보나에서의 삶

14:5.1 (158.4) 유란시아에서 너희는 물질적 실존의 너희 첫 삶을 지내는 동안 하나의 짧고도 격렬한 시험을 거친다. 맨션세계들에서 그리고 너희 체계와 별자리 그리고 지역우주를 지나 올라가면서, 너희는 상승하는 모론시아 위상들을 지나간다. 초우주의 훈련 세계들에서 너희는 진보의 참된 영 단계들을 거쳐 지나고 결국 생겨나는 하보나로의 변천을 위해 준비된다. 하보나의 일곱 순환회로들 위에서의 너희의 달성은 지적이고 영적이며 체험적이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순환회로의 세계들 각각에는 성취되어야 할 분명한 과업이 있다.

14:5.2 (158.5) 중앙우주의 신성한 세계들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값지고 충만하며, 너무나도 완벽하고 풍부하여, 창조된 존재가 체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인간 개념을 전적으로

초월한다. 이 영원한 창조의 사회적 및 경제적 활동들은 유란시아와 같은 진화 세계들에 사는 물질적 창조체들의 업무와 전반적으로 다르다. 하보나 생각의 기법조차도 유란시아에서의 사고(思考)의 과정과 같지 않다.

14:5.3 (158.6) 중앙우주의 규정들은 적절하게 그리고 선천적으로 자연스럽다; 행위성의 법칙들은 제멋대로가 아니다. 하보나의 모든 요구사항에는 정의(正義)의 이성과 공의(公義)의 법칙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병합된 이 두 요소들은 유란시아에서 공정성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과 동일하다. 너희가 하보나에 도착할 때, 너희는 그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할 방법으로 일을 행하는 것을 자연적으로 즐기게 될 것이다.

14:5.4 (158.7) 지능 존재들이 중앙우주에 처음 도달할 때, 그들은 일곱 번째 하보나 순환회로의 선도(先導) 세계에 받아들여지고 거기에 거주한다. 새로 도착한 자들이 영적으로 진보하게 되면, 그들의 초우주 주(主) 영의 정체성 이해를 달성하고, 그들은 여섯 번째 순환계로 옮겨진다. (인간 마음 안에서의 진보의 순환계로 지칭되는 것들은 중앙우주에서의 이러한 배열에서 유래한다.)

상승자들이 최극위의 실현을 달성하고 그리하여 신(神) 모험여행을 위해 준비된 후에, 그들은 다섯 번째 순환계로 옮겨진다; 무한한 영을 달성한 후에, 그들은 네 번째로 옮겨진다. 영원한 아들을 달성한 후에, 그들은 세 번째로 옮겨진다; 그들이 우주 아버지를 인식한 후에, 그들은 두 번째 순환회로의 세계들 위에 머물기 위하여 가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파라다이스 무리들과 더욱 친하게 된다. 하보나의 첫 번째 순환회로에 도착하는 것은, 시간의 후보자들이 파라다이스의 봉사에 승인되는 것을 의미한다. 무기한으로, 창조체 상승의 기간과 본성에 따라, 그들은 진보하는 영적 달성의 내부 순환회로에 머물 것이다.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이 내부 순환회로로부터 파라다이스 거주와 최종의 무리단 가입을 향해 안쪽으로 통과한다.

14:5.5 (159.1) 너희가 상승하는 순례자로서 하보나에 머무는 동안, 너희는 너희가 배정된 그 순환회로의 세계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방문하도록 허용될 것이다. 또한 너희는 너희가 전에 지나왔던 그 순환회로들의 행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것이 초(超)천사 품에 휩싸임이 필요 없이, 하보나의

순환회로에 머무는 자들에게 가능하다. 시간의 순례자들은 “성취된” 공간을 지나도록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지만 “성취되지 않은” 공간을 다룰 때에는 예정된 기법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순례자는 운송 초(超)천사의 도움 없이는 하보나를 떠날 수도 없고, 그의 배치된 순환회로 너머 바깥으로 갈 수 없다.

14:5.6 (159.2) 이 광대한 중앙 창조에는 새롭게 하는 기원성이 있다. 물질의 물리적 조직과 지능 존재들 그리고 다른 살아있는 물체들의 기본적 계층들의 근본적 구성을 제외하고, 하보나의 세계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다. 이 행성들 각각은 기원적이고 독특하며 배타적인 창조다; 각 행성은 비길 데 없고 뛰어나며 완전한 작품이다. 그리고 개별존재성의 이 다양함은 행성 실존의 물리적, 지적, 그리고 영적 측면들의 모든 모습에 확장된다. 이들 10억 완전 구체들 각각은 거주하는 영원으로 늘 계신이들의 계획에 따라 개발되고 장식되어 왔다. 그리고 이것이 왜 그들 중 어느 둘도 똑같지 않은가의 이유이다.

14:5.7 (159.3) 하보나 순환회로들 중 마지막을 너희가 지나가고 하보나 세계들 중 마지막을 방문하면 비로소, 모험의 힘찬

기운과 호기심의 자극은 너희 생애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추진력, 앞으로 향하는 영원의 충동이 그 선구자, 시간 속에서의 모험하는 매혹을 대신할 것이다.

14:5.8 (159.4) 단조로움은, 창조하는 상상력에서 미숙하다는 것과 영적 자질과의 지적 조화-협동에서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상승하는 필사 존재가 이들 하늘세계들에 대한 탐험을 시작할 때가 되면,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는 이미 감성적, 지성적, 사회적 성숙을 달성해 온 것이다

14:5.9 (159.5) 너희는 하보나에서, 순환회로에서 순환회로로 나아가면서 꿈도 꾸지 않았던 변화들에 네가 부딪치는 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각 순환회로에서, 행성에서 행성으로 너희가 진보하면서 너희의 놀라움은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 10억 학습세계 각각은 놀라움의 참다운 대학이다. 계속되는 놀라움, 끝없는 경이로움은 이런 순환회로들을 지나고 이들 거대한 구체들을 여행하는 자들이 겪는 체험이다.

14:5.10 (159.6) 모험에 대한 사랑, 호기심, 그리고 단조로움을 두려워하는 것—진화하는 인간 본성에 선천적인 이들

특색들—은 너희가 잠시 땅에 머무는 동안 단지 너희를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려고 그렇게 투입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은 모험에서의 끝없는 생애, 가득찬 기대의 영속하는 생명, 발견의 영원한 항해의 오직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넌지시 비치려는 것이다.

14:5.11 (160.1) 호기심—탐구의 영, 발견에 대한 충동, 탐험에 대한 욕구—은 진화하는 공간 창조체들의 선천적이고도 신성한 자질의 한 부분이다. 자연적인 이들 추진력들이 단지 너희를 좌절시키고 억누르라고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진실로, 이러한 야심적인 충동들이 너희가 잠시 땅에 사는 동안 자주 억제되어야만 하고, 실망이 종종 체험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가올 긴 시대들 동안 충분히 실현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만족될 것이다.

제 6 장. 중앙우주의 목적

14:6.1 (160.2) 일곱-회로로 된 하보나의 활동들의 범위는 거대하다. 일반적으로, 그것들은 다음과 같이 묘사될 수 있다:

14:6.2 (160.3) 1. 하보나의.

14:6.3 (160.4) 2. 파라다이스의.

14:6.4 (160.5) 3. 상승하는-유한의—최극-궁극 진화의.

14:6.5 (160.6) 현 우주 시대의 하보나 안에서는, 말한 적이 없는 아(亞)절대의 다양성들 그리고 마음과 영 기능들의 또 다른 위상들을 포함하여, 많은 초(超)유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나에게 계시되지 않은 많은 목적들을 중앙우주가 이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창조된 마음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방법으로 기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완전한 창조가 어떻게 필요들에 대하여 사명활동하고 우주 지능체의 일곱 계층들의 만족에 기여하는가를 서술하고자 애쓸 것이다.

14:6.6 (160.7) 1. 우주 아버지—첫째근원이며 중심. 아버지 하느님은 중앙 창조의 완전으로부터 최극의 어버이의 만족감을 이끌어 낸다. 그는 거의-평등한 차원들에서 사랑 충족의 체험을 즐긴다. 완전한 창조자는 완전한 창조체의 찬미로서 신성하게 기쁨을 누린다.

14:6.7 (160.8) 하보나는 아버지에게 최극 성취 충족을 제공한다.
하보나에서 완전성 실현은 무한 확대의 영원한 추진력이
시간-공간에서 지연되는 것을 보상한다.

14:6.8 (160.9) 아버지는 신성한 아름다움의 하보나 상호보답을
즐긴다. 그것은 모든 진화하는 우주들에게 절묘한 조화의
완전한 원형틀을 제공하도록 신성한 마음을 만족시킨다.

14:6.9 (160.10) 우리의 아버지는 중앙우주가 우주들의 우주의
모든 개인성들에게 영 실체의 가치 있는 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한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14:6.10 (160.11) 우주들의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에서 모든
이어지는 우주 확대를 위한 영원한 힘 핵심으로서
하보나와 파라다이스를 알맞은 것으로 여긴다.

14:6.11 (160.12) 영원한 아버지는 시간의 상승 후보자들, 그들의
창조자-아버지의 영원한 집을 성취하는 공간의 그의 필사
손자들을 위한 가치 있고 매혹적인 목표로서 하보나
창조를 끝없는 만족감을 가지고 바라보신다. 그리고
하느님은 신(神)과 그리고 신성한 가족의 영원한

고향으로서, 파라다이스-하보나 우주에서 기쁨을 누리신다.

14:6.12 (160.13) 2. 영원한 아들—둘째근원이며 중심. 영원한 아들에게 있어서 뛰어난 그 중앙 창조는 신성한 가족—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의 동반자관계 효력성에 대한 영원한 증명을 제공한다. 그것은 우주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려는 영적 그리고 물질적 기초이다.

14:6.13 (160.14) 하보나는 영 힘의 계속-확대하는 실현을 위한 거의 무제한적 기초를 영원한 아들에게 제공한다. 중앙우주는 영원한 아들이 그의 연관-동료 파라다이스 아들들에 대한 가르침을 위한 증여 사명활동의 영과 기법을 안전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실증할 수 있는 장(場)을 그에게 제공하였다.

14:6.14 (161.1) 하보나는 우주들의 우주에 대한 영원한 아들의 영(靈)-중력 통제를 위한 실체 기초이다. 이 우주는 부모(父母)로서의 갈망의, 영적 재생산의, 충족을 아들에게 제공한다.

14:6.15 (161.2) 하보나 세계들과 그것들의 완전한 거주자들은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최초의 그리고 영원토록 최종적인 실증이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무한 보완물로서의 아들의 의식(意識)이 완전하게 만족된다.

14:6.16 (161.3) 그리고 이 우주는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사이의 평등성 형제우애의 상호보답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것이 각각의 무한 개인성의 영속하는 증명을 이루고 있다.

14:6.17 (161.4) 3. 무한한 영—셋째근원이며 중심. 하보나 우주는 공동 행위자가 되는, 아버지-아들의 무한 대표자가 되는, 증명을 무한한 영에게 제공한다. 하보나에서 무한한 영은 창조하는 활동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병합된 만족을 얻으며 이 신성한 성취와 함께 절대 공존의 만족감을 누린다.

14:6.18 (161.5) 하보나 안에서 무한한 영은 잠재적 자비 사명활동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그가 실증할 수 있는 일종의 장(場)을 설립하였다. 이 완전 창조에서 영은 진화 우주들에서 사명활동하는 모험을 위해 예비 실습하였다.

14:6.19 (161.6) 이 완전 창조는 무한한 영에게, 신성한 두 부모들, 곧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과 함께 우주 관리-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연관 동료-창조자 자손으로서 우주를 관리-행정하는 기회, 그리하여 창조자 아들들의 연관-동료 창조 영 들로서 지역우주들의 공동 관리-행정을 위해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4:6.20 (161.7) 하보나 세계들은 조화우주 마음의 창조자들과 실존하는 모든 창조체 마음에 대한 사명활동자들의 마음 실험실이다. 마음은 각 하보나 세계마다 다르며 모든 영적 그리고 물질적 창조체 지능을 위한 원형틀로서 쓰인다.

14:6.21 (161.8) 이들 완전 세계들은 파라다이스 사회로 가게 되어 있는 모든 존재들을 위한 마음 대학원들이다. 그들은 안전에서의 그리고 조언하는 개인성들의 마음 사명활동의 기법을 시험하는 풍부한 기회를 영에게 제공하였다.

14:6.22 (161.9) 무한한 영에게 하보나는 공간의 우주들에서 그의 광범위하고 사심-없는 활동에 대한 보상이다. 하보나는 시간과 공간의 지치지 않는 마음 사명활동자에게 완전한 고향이자 휴식처이다.

14:6.23 (161.10) 4. 최극존재—체험적 신(神)의 진화적 통일체.

하보나 창조는 최극존재의 영적 실체에 대한 영원하고 완전한 증명이다. 이 완전 창조는 시간과 공간의 체험적 우주에서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유한-반영의 힘-개인성 합성이 시작하기 전에, 최극자 하느님의 완전하고도 균형 잡힌 영(靈) 본성을 계시한 것이다.

14:6.24 (161.11) 하보나에서 전능자의 힘 잠재들은 최극자의 영적

본성과 통합되어 있다. 이 중앙 창조는 최극자의 미래-영원한 합일에 대한 표본이다.

14:6.25 (161.12) 하보나는 최극자의 보편성 잠재에 대한 완전한

원형틀이다. 이 우주는 최극자의 미래 완전에 대한 완결된 묘사이며 그리고 궁극자의 잠재를 넘어서 비친다.

14:6.26 (162.1) 하보나는 최극의 그리고 완전한 자아-통제의

살아있는 의지적 창조체로서 존재하는 영 가치들; 궁극적으로 영에 대등한 것으로 존재하는 마음; 무제한적 잠재를 갖춘 지능의 실체와 합일체, 이들의 최종을 나타낸다.

14:6.27 (162.2) 5. 조화-협동 창조자 아들. 하보나는 파라다이스 미가엘들이 우주 창조에서 이어지는 그들의 모험을 위해 준비되는 교육훈련장이다. 이 신성하고 완전한 창조는 모든 창조자 아들을 위한 원형틀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우주가 결국에는 완전성의 이들 파라다이스-하보나 차원에 도달하도록 만들려고 분투한다.

14:6.28 (162.3) 창조자 아들은 그 자신의 필사자 자녀들과 영 존재들을 위한 개인성-원형틀 가능성으로서 하보나의 창조체들을 사용한다. 미가엘과 또 다른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파라다이스와 하보나를 시간의 자녀들의 신성한 운명으로 본다.

14:6.29 (162.4) 창조자 아들들은 중앙 창조가 그들의 지역우주를 안정시키고 통합시키는 없어서는 안 될 우주 전반적-통제의 실제 근원임을 안다. 그들은 최극자의 그리고 궁극자의 항상-현존하는 영향의 개인적 현존이 하보나에 있다는 것을 안다.

14:6.30 (162.5) 하보나와 파라다이스는 미가엘 아들의 창조적 힘의 근원이다. 우주 창조에서 그와 협동하는 존재들이

여기에 거주한다. 파라다이스로 부터 우주 어머니 영들, 지역우주들의 공동 창조자들이 온다.

14:6.31 (162.6)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중앙 창조를 그들의 신성한 부모들의 고향—그들의 고향—으로 여긴다. 그것은 그들이 때때로 돌아가기를 즐기는 장소이다.

14:6.32 (162.7) 6. 조화-협동 사명활동 딸. 우주 어머니 영들, 지역우주의 조화-협동-창조자들은, 순환회로들의 영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하보나의 세계들에서 그들의 전(前)개인적 훈련을 확보한다. 중앙우주에서는 줄곧 아버지의 뜻에 모두 따르면서, 지역우주들의 영 딸들이 파라다이스의 아들들과 협동하는 방법을 적절하게 훈련받는다.

14:6.33 (162.8) 하보나의 세계들에서 영과 영의 딸들은 영적 그리고 물질적 지능들의 모든 자신들 집단을 위한 마음 원형틀들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 중앙우주는 우주 어머니 영이 연관-동료 창조자 아들과 함께 공동으로 후원하고 있는 저들 창조체들이 언젠가 갈 운명이다.

14:6.34 (162.9) 우주 어머니 창조자는 파라다이스와 하보나를 그녀가 기원된 장소 그리고 무한 어머니 영의 고향, 무한 마음의 개인성 현존이 있는 거처로서 기억한다.

14:6.35 (162.10) 또한 살아있는 의지 창조체들을 창조하는 일에서 창조자 아들에게 보완이 되도록 우주 신성한 사명활동자가 적용하는 창조자신분의 개인적 특권이 이 중앙우주로부터 증여되어 나온다.

14:6.36 (162.11)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한 어머니 영의 이들 딸 영들은 그들의 파라다이스 고향에 언제라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에, 그들은 하보나에서 최극존재와 연관되고 그리고 파라다이스에서 장엄자로서 개인성구현된 우주적 반영 현상으로부터 큰 만족을 얻는다.

14:6.37 (162.12) 7. 상승하는 생애의 진화적 필사자. 하보나는 모든 필사자 유형의 원형틀 개인성들의 고향이며 시간의 창조계에서 태어나지 않는 필사자 관계적-연합의 모든 초(超)인간 개인성의 고향이다.

14:6.38 (162.13) 이들 세계는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실체 차원에서 참된 영 가치들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모든 인간

충동들의 자극을 제공한다. 하보나는 모든 상승하는
필사자의 예비- 파라다이스 훈련 목표이다. 필사자들은
예비-파라다이스 신(神)—최극존재—을 여기에서
달성한다. 하보나는 파라다이스와 하느님 달성에
도달하는 입구로서 모든 의지적 창조체 앞에 있다.

14:6.39 (163.1) 파라다이스는 최종자의 고향이고, 하보나는
작업장이자 놀이터이다. 그리고 하느님을-아는 모든
필사자들은 최종자가 되기를 갈망한다.

14:6.40 (163.1) 중앙우주는 사람의 확정된 운명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주 아버지의 무한성을 탐험하는 체험으로,
밝혀지지 않고 그리고 우주적인 모험을 언젠가는
시작하여 나가므로, 이곳은 또한 최종자의 영원한 생애의
출발 장소이기도 하다.

14:6.41 (163.1) 하보나는, 초(超)유한 차원들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려는 공간 순례자들이 목격할지도 모를,
아(亞)절대적 의의(意義)를 가지고 미래 우주시대에도
의심할 여지없이 언제까지나 기능할 것이다. 하보나는
아(亞)절대 존재들을 위한 훈련 우주로서 봉사할 수 있는
수용력을 갖고 있다. 아마 그것은 일곱 초우주들이

외부우주의 초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중등학교로서 기능할 때, 완결하는 학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보나의 잠재가 실제로 무제한적이라는, 중앙우주가 창조된 존재들의 모든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유형들을 위한 체험적 훈련우주로 봉사할 수 있는 영원한 수용력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믿고 싶다.

14:6.42 (163.1) [유버사에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로부터 기능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은 지혜의 완전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15 편 일곱 초우주

15:0.1 (164.1) 우주 아버지가—아버지로서—관계되는 한, 우주들은 실질적으로 비(非)실존적이다; 그는 개인성들을 상대한다; 그는 개인성들의 아버지이다.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에—창조자 동반자들로서—관계되는 한, 우주들은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들의 공동 통치 아래에서 지역화 되고 개별적이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관계되는 한, 하보나 밖에는 오직 거주민이 사는 일곱 우주들, 첫 번째 하보나-이후 공간차원의 순환계의 관할권을 갖는 일곱 초우주들이 있다. 일곱

주(主) 영들은 중앙 섬으로부터 그들의 영향력을 방출하며, 그리하여 광대한 창조를 하나의 거대한 바퀴로 이루고, 바퀴 중심은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섬이고, 일곱 주(主) 영들의 발광이 일곱 바퀴살을 이루고, 대우주의 외부 영역들로 테두리를 이룬다.

15:0.2 (164.2) 우주적 창조의 물질화가 있던 초기에 그 초우주 조직과 정부의 칠중 기획이 조성되었다. 첫 번째 하보나-이후 창조는 일곱 개의 거대한 부분들로 나뉘었고, 이 초우주 정부들의 본부 세계들이 설계되고 건축되었다. 현재의 관리-행정은 거의 영원부터 존재해 왔고, 그리고 이 일곱 초우주들의 통치자들은 마땅히 옛적으로 늘 계신이라고 불린다.

15:0.3 (164.3) 그 초우주들에 관한 거대한 지식 덩어리 중에서, 나는 너희에게 말해주기를 거의 바랄 수도 없다, 그러나 물리적 그리고 영적 기세들에 대한 지능적 통제의 기법이 이들 영역에 두루 작용하고, 그리고 우주 중력 현존이 웅대한 힘과 완전 조화 속에서 기능하고 있다. 그 초우주 영역들의 물리적 구성과 물질적 조직에 대한 적절한 개념을 먼저 얻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너희가 그것들의 영적(靈的) 정부를 위하여 그리고 이 일곱
초우주들에 두루 여기저기에 분산된 거주민이 사는
무수한 행성들에 거하는 의지 창조체들의 지적 전진을
위하여 제공된 놀라운 조직의 의의(意義)를 파악하도록 더
잘 준비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 1 장. 초우주 공간 차원

15:1.1 (164.4) 너희의 짧은 1백만 년 또는 10억 년에 해당하는
세대들의 기록들과 관찰들 그리고 기억들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볼 때, 모든 실천적 의지와 목적들에서, 유란시아와
그 소속된 우주는, 새로운 공간으로 하나의 길고도 그리고
좌표 없는 돌진의 모험을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유버사의
기록들에 따르면, 더욱 오래된 관찰들에 따르면, 우리
계층의 더욱 확장된 체험과 계산에 부합되고, 그리고 이들
및 그 밖의 발견에 기초한 결론의 결과로서, 우리는
우주들이, 첫째 위대한 근원이며 중심 그리고 그가
거주하는 우주 둘레를 장엄한 모습으로 휘돌아
회전하면서, 계층적이고, 잘-납득되고, 완전하게 통제된
행렬에 속해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15:1.2 (165.1) 우리는 일곱 초우주들이 하나의 거대한 타원, 거창하고 길게 늘어진 순환계를 지나가고 있음을 오래 전부터 발견하였다. 너희의 태양계와 시간의 다른 세계들이 좌표와 나침반 없이, 지도에도 없는 공간 속으로 곤두박질치며 돌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체계가 소속된 그 지역우주는 중앙우주를 도는 거대한 휘돌게 하는 회전 둘레에서 분명하고도 잘 알려진 시계반대방향 순환계를 따라가고 있다. 이 조화우주 경로는 좌표로 잘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너희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들의 궤도가 유란시아 천문학자들에게 잘 알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초우주 별 관찰자들에게 속속들이 알려져 있다.

15:1.3 (165.2) 유란시아는 한 지역우주 안에, 그리고 충분히 조직되지 않은 한 초우주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너희의 지역우주는 부분적으로 완성된 수많은 물리적 창조계에 바로 근접해 있다. 너희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조성된 우주들 중의 하나에 속해 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좌표 없는 공간 속으로 격렬하게 돌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영역 속으로 아무 것도 모르는 채 휘돌아 회전하며 나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너희는 미리

예정되고 정돈된 초우주 공간 차원의 통로를 따라가고 있다. 너희는 지금 너희 행성 체계 또는 그것의 선배들이 여러 시대 전에 지나갔던 것과 아주 똑같은 공간을 통과하고 있다; 먼 훗날 언젠가 너희 체계 또는 그것의 후배들이 지금 너희가 매우 신속하게 돌진해 지나가는 곳과 동일한 공간을 다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15:1.4 (165.3) 이 시대에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고려되는 방향에 따라, 초우주 1번은, 가깝게 마주하는, 위대한 근원이며 중심의 파라다이스 거주지와 하보나의 중앙우주를 향하여, 동쪽으로부터의 방향에서, 거의 정북(正北)쪽을 휘돌아 회전하고 있다. 이 지점은, 서쪽에서 대응되는 위치와 함께, 영원한 섬에 이르는 시간의 구체들의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접근을 나타낸다. 초우주 2번은 북쪽에 있고, 서쪽방향을 향해 휘도는 회전을 준비하고 있고, 한편 3번은 현재 거대한 공간 경로의 최북단 원호(圓弧)를 차지하고 있는데, 남쪽으로의 돌입으로 인도하는 굽은 부분을 이미 돌고 있다. 4번은 비교적 똑바른 남쪽으로의 비행에 있고, 전진할 영역들은 지금 위대한 중심과 가깝게 마주하고 있다. 5번은 중심들의 중심 마주하는 지점을 거의 떠나가고 있으면서, 한편

동쪽방향을 향한 휘도는 회전 바로 직전에서 똑바로 남쪽으로 향하는 경로를 따르는 중이다.; 6번은 남쪽 곡선의 대부분, 너희 초우주가 이미 거의 다 지나간 그 원호(圓弧)를 차지하고 있다.

15:1.5 (165.4) 네바돈이라는 너희 지역우주는 일곱 번째 초우주인 오르본톤에 속해 있는데, 그것은 초우주 1번과 6번 사이에서 휘돌아 회전하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가 시간을 계산한 바로는) 초우주 공간 차원의 남동쪽 굽은 곳을 돌았다. 오늘날, 유란시아가 소속된 태양계는 남쪽 곡면 둘레에서의 휘도는 회전을 수십억 년 지나갔고 그리하여 너희는 바로 지금 남동쪽 굽은 곳을 넘어서 나아가고 있으며 비교적 똑바르고 긴 북쪽 경로를 통하여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긴 시대들 동안 오르본톤은 거의 직접 북쪽 방향의 이 경로를 따라갈 것이다.

15:1.6 (165.5) 유란시아는 너희 지역우주의 경계선을 향하여 상당히 바깥쪽으로 나간 체계에 속해 있고; 너희 지역우주는 현재 오르본톤의 가장자리를 지나고 있다. 너희를 지나도 여전히 다른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너희는

위대한 근원이며 중심에 비교적 근접해 있는 거대한 원
둘레를, 휘돌아 회전하는 그 물리적 체계들에서, 공간 속에
멀리 떨어져 있다.

제 2 장. 초우주의 조직

15:2.1 (165.6) 오직 우주 아버지만이 공간 속의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위치와 실재적 숫자를 알며; 그는 그것들 모두를
이름과 숫자로 부른다. 나는 오직 거주되거나 거주할 수
있는 행성들의 대략적인 숫자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지역우주들은 지능 생명에게 적당한 세계들을
다른 곳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투사된 지역우주들이 모두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공하는 추정치는 물질적
창조의 광대함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제공하려는 목적일
뿐이다.

15:2.2 (166.1) 대우주 안에는 일곱 초우주들이 있고, 그것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5:2.3 (166.2) 1. 체계. 약 1,000개의 거주되거나 거주할 수 있는
세계들로 구성되는 초(超)정부의 기초 단위. 타오르는
태양들, 차가운 세계들, 뜨거운 태양에 너무 근접된

행성들, 그리고 창조체 거주지로 적당하지 않은 또 다른 구체들은 이 집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명을 지탱하기에 적합한 1,000개의 이들 세계를 체계라고 부른다, 그러나 비교적 젊은 체계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작은 숫자의 이러한 세계들만이 거주되기도 한다. 거주민이 사는 각 행성은 한 명의 행성영주에 의해 지배된다, 그리고 각 지역체계는 그 본부로서 고안건축 구체를 가지며 체계 주권자에 의해 통치된다.

15:2.4 (166.3) 2. 별자리. 100개의 체계들(약 100,000개의 거주가능 행성들)이 한 별자리를 구성한다. 각 별자리마다 고안건축 본부구체를 가지며 세 명의 보론다텍 아들들, 지고자(至高者)들에 의해 지배된다. 또한 각 별자리는 관찰하는 한 명의 충심으로 늘 계신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대사를 갖는다.

15:2.5 (166.4) 3. 지역우주. 100개의 별자리들(약 10,000,000개의 거주가능 행성들)이 한 지역우주를 구성한다. 각 지역우주는 하나의 장엄한 고안건축 본부 세계를 가지며 미가엘 계층의 조화-협동 창조자 아들들 중 하나에 의해 통치된다. 각 우주는 한 명의 연합으로 늘 계신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대표의 현존에 의해 축복을 받는다.

15:2.6 (166.5) 4. 소구역. 100개의 지역우주들(약 1,000,000,000개의 거주가능 행성들)이 초우주 정부의 한 소구역을 구성한다; 그것은 그곳에서의 그 통치자,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가 소구역의 관련사들을 관리-운영하는 놀라운 하나의 본부 세계를 갖고 있다. 각 소구역 본부에는 세 명의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 최극 삼위일체 개인성들이 있다.

15:2.7 (166.6) 5. 대구역. 100개의 소구역들(약 100,000,000,000개의 거주가능 세계들)이 하나의 대구역을 이룬다. 각 대구역에는 하나의 훌륭한 본부가 있고 세 명의 완전히 늘 계신이들, 최극 삼위일체 개인성들에 의해 주관된다.

15:2.8 (166.7) 6. 초우주. 10개의 대구역(약 1,000,000,000,000개의 거주가능 행성들)이 하나의 초우주를 구성한다. 각 초우주에는 하나의 거대하고도 영광스러운 본부 세계가 있고 세 명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통치된다.

15:2.9 (166.8) 7. 대우주. 일곱 초우주들이 조직된 현재의 대우주를 이루는데, 거주 가능한 약 7조 개의 세계들과 이에 더하여 고안건축 구체들과 거주민이 사는 10억 개의 하보나 구체들로 구성된다. 초우주들은 파라다이스로부터 일곱 주(主) 영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그리고 반영적으로 통치되고 관리-운영된다. 하보나의 10억 세계들은 이 완전 구체들 각각을 주관하는 그러한 최극 삼위일체 개인성인 분, 영원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직접적으로 관리-운영된다.

15:2.10 (167.1) 파라다이스-하보나 구체들을 제외하고, 우주 조직 계획은 다음과 같은 단위들을 제공한다:

15:2.11 (167.2) 초우주들 7

15:2.12 (167.3) 대구역들 70

15:2.13 (167.4) 소구역들 7,000

15:2.14 (167.5) 지역우주들 700,000

15:2.15 (167.6) 별자리들 70,000,000

15:2.16 (167.7) 지역체계들 7,000,000,000

15:2.17 (167.8) 거주가능 행성들 7,000,000,000,000

15:2.18 (167.9) 일곱 초우주 각각은 대략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체계는 약1,000세계들 하나의 별자리는(100 체계).....100,000세계들 하나의 우주는(100 별자리).....10,000,000세계들 하나의 소구역은(100 우주).....1,000,000,000세계들 하나의 대구역은(100 소구역)...100,000,000,000세계들 하나의 초우주는(10 대구역).....1,000,000,000,000세계들 을 포옹한다.

15:2.19 (167.10) 하나의 체계에 포옹되는 약1,000세계들

15:2.20 (167.11) 하나의 별자리는(100 체계).....100,000세계들

15:2.21 (167.12) 하나의 우주는(100 별자리).....10,000,000세계들

15:2.22 (167.13) 하나의 소구역은(100 우주).....1,000,000,000세계들

15:2.23 (167.14) 하나의 대구역은(100 소구역)...100,000,000,000세계들

15:2.24 (167.15) 하나의 초우주는(10 대구역).....1,000,000,000,000세계들

15:2.25 (167.16) 그러한 계산 전체는 최선의 추정치인데, 이는 새로운 체계들이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반면에 다른 조직들이 일시적으로 물질적 실존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3 장. 오르본톤 초우주

15:3.1 (167.17) 유란시아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의 영역들 전체는 실천적으로 대우주의 일곱 번째 부문, 오르본톤 초우주에 속한다. 광대한 은하수 별들의 체계는 오르본톤의 중앙 핵을 나타내는데, 너희 지역우주 경계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태양들, 공간의 암흑섬들, 2중성, 구형(球形)의 성단(星團)들, 별 구름들, 나선형 그리고 기타 성운들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집합체는, 무수한 개별 행성들과 함께, 시계 모양, 거주민이 사는 진화하는 우주들 중 약 7분의 1을 집단으로 하는 길쭉한-원형을 형성한다.

15:3.2 (167.18) 유란시아의 천문상의 위치로부터, 거대한 은하수와 가까운 체계들의 단면을 통과하여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너희는 오르본톤의 구체들이 길쭉한 거대한

평면, 폭이 두께보다 훨씬 크고 길이가 폭보다 훨씬 큰 평면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관찰한다.

15:3.3 (167.19) 이른바 은하수를 관찰하면 한쪽 방향에서 하늘들을 볼 때 오르본톤 별 밀집 도에서 비교적 증가하는 반면, 양쪽 방향 모두에서는 밀도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별들 그리고 다른 구체들의 숫자는 우리의 물질적 초우주의 주요 평면으로부터 점점 감소한다. 관찰하는 각도가 좋을 경우, 최고의 밀도를 갖는 이 영역의 주된 본체를 통해 바라본다면, 너희는 거주하는 우주와 만물의 중심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15:3.4 (167.20) 오르본톤의 10개 대구역 중, 8개는 유란시아인 천문학자들에 의해 이미 대략적으로 정체성이 확인되었다. 다른 두 개는 구분하여 인식하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너희는 이 현상들을 안쪽으로부터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오르본톤이라는 초우주를 공간 멀리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너희는 일곱 번째 은하계의 10개 대구역들을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15:3.5 (168.1) 너희 소구역의 회전 중심은 궁수(弓手)자리의 거대하고도 조밀한 별 구름 안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너희 지역우주 그리고 그와 연관된 창조계 모든 것들이 그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고, 광대한 궁수자리 예측-은하 체계의 반대편으로부터 너희는 엄청난 별 소용돌이 속에서 창발하는 거대한 별 구름 줄기들을 관찰할 것이다.

15:3.6 (168.2) 너희 태양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행성들이 소속된 물리적 체계의 핵심은 한 때 안드로노버 성운이었던 것의 중심이다. 전에 나선형이었던 이 성운은 너희 태양계가 태어나면서 발생한 사건들과 관련된 중력 교란에 의해 약간 일그러졌으며, 그것은 큰 성운의 접근 때문에 유발되었었다. 근접된 이 충돌이 안드로노버로 하여금 약간 구형의 집합체가 되게 하였지만 그 태양들 그리고 그것들과 관련된 물리적 집단들의 양방향 행진을 전적으로 파괴하지는 않았다. 너희 태양계는 지금 이 일그러진 소용돌이의 축들 중 하나 안에서 거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성류(星流)의 경계 끝을 향하여 거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15:3.7 (168.3) 궁수(弓手)자리 구역과 오르본톤의 다른 모든 구역들 그리고 지역들은 유버사 둘레를 회전하고 있으며, 유란시아인들 별 관찰자가 혼동하는 것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겹의 순회하는 운동들에 의해서 산출되는 착각과 상대적 왜곡으로부터 발생된다:

15:3.8 (168.4) 1. 유란시아의 태양 둘레 회전.

15:3.9 (168.5) 2. 이전(以前)에 안드로노버 성운의 핵 주위를 도는 너희 태양계의 순환회로.

15:3.10 (168.6) 3. 네바돈의 성운의 복합 회전-중력 중심에 대한 안드로노버 별 가족과 그리고 연관된 성단들의 회전.

15:3.11 (168.7) 4. 네바돈의 지역 성운 그리고 그들의 궁수(弓手)자리 중심에서의 소구역 둘레를 휘도는 그와 관련된 창조계의 회전.

15:3.12 (168.8) 5. 궁수(弓手)자리를 포함하여, 100개의 소구역의 그들의 대구역을 중심으로 한 회전.

15:3.13 (168.9) 6. 오르본톤의 유버사 본부에 대한, 소위 성류(星流)운동이라 불리는, 열 개의 대구역들의 소용돌이.

15:3.14 (168.10) 7.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둘레의 오르본톤과 일곱
관련 초우주들의 움직임, 초우주 공간 차원의
시계반대방향 행렬.

15:3.15 (168.11) 이들 다중 운동들은 여러 계층들에 속한다: 너희
행성과 너희 태양계의 공간 경로들은 유전적인데,
기원에서 선천적이다. 오르본톤의 절대적인 시계반대방향
운동 역시 유전적인데, 주(主)우주 의 고안건축의
계획에서 선천적이다. 그러나 간섭하는 운동들은 혼합적
기원을 갖는데, 일부분은 물질-에너지의 구조적
분열로부터 초우주들 안으로 파생되었고 일부분은
파라다이스 기세조직자들의 지능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에
의해 산출되었다.

15:3.16 (168.12) 지역우주들은 그들이 하보나에 접근함에 따라
더욱 가까운 근접성을 가진다; 순환회로들은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그리고 층위에 층으로, 증가되는
초(超)부담(負擔)이 있다. 그러나 영원한 중심으로부터
밖으로 멀리 나갈수록 체계, 층, 순환회로 그리고 우주들은
점점 줄어든다.

제 4 장. 성운-우주들의 조상

15:4.1 (169.1) 창조계와 우주 조직이 무한한 창조자들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들의 통제 아래에 언제까지나 놓여 있지만 한편, 전체적인 현상은 예정된 기법에 따라서 그리고 기세, 에너지, 그리고 물질의 중력 법칙들에 순응하면서 진행한다. 그러나 공간의 우주적 기세-충전과 관련된 어떤 신비로움이 존재한다; 우리는 극자적 단계에서 부터 그 이후의 물질적 창조계들의 조직은 잘 납득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극자들의 조화우주적 조상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 조상이 되는 기세들이 파라다이스의 정확하고 거대한 테두리 안에 있는 충만 공간에 두루 언제까지나 휘돌아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파라다이스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비록 파라다이스 중력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고 있지만, 모든 물질화의 조상인, 공간의 이 기세-충전은 하부 파라다이스의 현존에 대해 항상 응답하고 있으며, 겉보기에는 분명히, 하부 파라다이스 중심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순환회로를 이루고 있다.

15:4.2 (169.2) 파라다이스 기세조직자들은 공간 잠재력을 원초기세로 변형시키고, 이 이전(以前)-물질적 잠재적인

것을 물리적 실체의 1차 및 2차 에너지 현시활동으로 진화시킨다. 이 에너지가 중력에-응답하는 차원들을 달성하게 되면, 힘 지도자들 그리고 초우주 관리 체제의 그들의 연관-동료들이 그 장면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의 갖가지 힘 순환회로들과 에너지 경로들을 확립하도록 고안된, 결코-끝남이 없는 그들의 조종을 시작한다. 그리하여 물리적 물질이 공간 안에 나타나며, 그리고 그렇게 우주 조직을 개시하기 위한 무대가 마련된다.

15:4.3 (169.3) 에너지의 이러한 분할은 네바돈의 물리학자들에 의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들의 주된 어려움은 파라다이스 기세조직자들의 상대적인 접근 불가능성에 있는데, 이는 살아있는 힘 지도자들이, 비록 그들이 공간-에너지를 잘 다루고는 있지만, 그들이 그토록 기술적으로 그리고 지능적으로 조종하는 에너지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개념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5:4.4 (169.4) 파라다이스 기세조직자들은 성운 조직자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공간 현존에 관하여 거대한 기세의 회오리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것은 일단 시작이 되면, 모든

것에-가득 퍼지는 기세들이 우주 물질의 극자적 단위들의 결국 생겨나는 출현을 위해 결집될 때까지 결코 멈추거나 제한될 수 없다. 나선형의 성운 및 다른 성운, 직접-기원 태양들과 그들의 다양한 체계들의 모체(母體) 바퀴들이 그렇게 존재하게 된다. 외부 공간에서는 서로 다른 열 가지 형태의 성운들, 원시적 우주 진화의 현상들이 보일 수 있으며, 이 광대한 에너지 바퀴들은 일곱 초우주들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원되었다.

15:4.5 (169.5) 성운들은 크기와 결과적 숫자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의 별 자손과 행성 자손의 전체 질량에 있어서 매우 다르다. 오르본톤의 경계의 바로 북쪽에 있지만 초우주 공간 차원 안에 있는, 태양을 형성하는 어떤 성운은 이미 약 4만 개의 태양들을 탄생시켜 왔으며, 모체바퀴는 여전히 태양들을 발사하고 있고 그 대부분은 너희들 것보다 크기가 여러 배에 달한다. 외부 공간의 비교적 큰 어떤 성운들은 1억 개에 달하는 태양들을 기원시키고 있다.

15:4.6 (169.6) 지역우주들이 단일 성운의 산물들로부터 조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운은 소구역들 또는

지역우주들과 같은 행정-관리적 단위들 중 어떤 것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 각 지역우주는 성운 관계성에 상관없이 초우주의 전체 에너지 전하(電荷)의 정확하게 1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용하며, 이는 에너지가 성운에 의해 조직되지 않기 때문이다—그것은 우주적으로 배분된다.

15:4.7 (170.1) 나선형 성운들 전체가 태양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들은 그들의 분할된 별 후손들 대부분을 계속 통제해 오고 있고, 그들의 나선형 모습은 그들의 태양들이 가까운 형태화로서 성운의 축으로부터 멀어져 나간 사실로서 야기되었지만, 다양한 경로로 돌아오며, 그리하여 그것들을 한 지점에서 관찰하기는 쉽지만 그 성운 축으로부터 멀리 밖으로 떨어진 곳으로부터 그들의 다른 회귀 경로 위에 널리 퍼져 있을 때에는 그것들을 관찰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거주민이 사는 초우주 외곽에 있는 안드로메다가 매우 활동적이긴 하지만, 현재 오르본톤 안에서 태양을 형성하는 활동적인 성운은 그리 많지 않다. 멀리 있는 이 성운은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며, 너희는 그것을 볼 때 너희 눈에 들어온 그 빛이 거의 100만 년 전에 멀리 있는 그

태양들로부터 떠난 것임을 잠시 멈추어 생각해야 할 것이다.

15:4.8 (170.2) 은하수 은하계는 이전에 나선형이었던 수많은 성운과 다른 성운으로 구성되어 있고, 많은 것들이 아직도 그들의 기원적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 격변과 외부적 인력의 결과로, 많은 경우에 마젤란 성운과 마찬가지로 이 거대한 집합체로 하여금 빛나는 태양들의 거창한 발광 물질들로 나타나게 만들게 하면서 그러한 뒤틀림과 재배치를 겪어 왔다. 성단의 구형체들이 오르본톤의 외부 경계선 근처를 차지하고 있다.

15:4.9 (170.3) 오르본톤의 광대한 별 구름들은 은하수 은하계 밖에 있는 공간 영역들 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분리된 성운과 비교될만한 물질의 개별적 집합체로 간주되어야 한다. 아무튼 소위 공간의 별 구름들이라 불리는 것들 대부분은 기체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별 기체 구름들의 에너지 잠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며, 그 일부는 근처에 있는 태양들에 의해 흡수되고 태양 발산물로서 공간 속에 다시 발송된다.

제 5 장. 공간 몸체의 기원

15:5.1 (170.4) 초우주의 태양과 행성에 포함된 질량체는 성운 바퀴에서 기원된다; 한결같이 변경되는 물질의 양이 열린 공간 안에서 기원하고 있다해도, 초우주 질량 중 아주 적은 부분만이, (고안건축 구체들의 건축의 경우처럼) 힘 지도자들의 직접적 활동에 의해 조직화된다.

15:5.2 (170.5) 기원에 관하여, 대부분의 태양들, 행성들, 그리고 다른 구체들은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집단들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15:5.3 (170.6) 1. 수축하는 동심원 고리. 모든 성운들이 나선형인 것은 아니다. 수다한 거대 성운은, 이중적 별 체계로 나뉘거나 나선형으로 진화하는 대신, 다중-고리 형성으로 응축 과정을 지나간다. 그러한 성운은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거대한 구름들, 물질의 고리-모양 형성에 의해 에워싸인 거대한 중앙 태양으로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난다.

15:5.4 (170.7) 2. 빙빙도는 별들은 고도로 가열된 기체의 거대한 모체 바퀴를 방출하는 그 태양들을 포옹한다. 그것들은 고리 모양으로가 아니라 오른쪽 그리고 왼쪽 방향 행렬로 방출된다. 빙빙도는 별들은 또한 나선형이-아닌 다른 성운 안에서 기원한다.

3. 중력-폭발 행성. 태양이 나선형 또는 가로줄 무늬의 성운으로 탄생할 때, 상당한 거리를 두고 방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한 태양은 거의 기체 상태이며,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식어지고 응축되면, 거대한 질량의 어떤 물질, 거대한 태양 또는 공간의 암흑 섬 가까이를 휘돌아 회전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접근은 충돌을 가져올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력이 더 큰 물체를 끌어당겨서 비교적 작은 것 안에 조수(潮水) 격변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가까운데, 그리하여 요동치는 태양의 반대쪽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일련의 조수 용기가 일어나게 한다. 꼭짓점에서 이 폭발적 분출들은, 분출하는 태양의 중력-교정 지대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투사될 수도 있는 일련의 변화하는-크기의 물질의 집합체를 산출하며, 그리하여 이 에피소드에 관련된 두 몸체들 중 하나의 둘레에 그들 스스로의 궤도들 안에서 안정되어 간다. 나중에는 더 큰 물질 집합체들이 연합하고 비교적 작은 몸체들을 자기들 쪽으로 점점 더 당긴다. 비교적 작은 체계들의 고체 행성들 대부분은 이러한 방법으로 실존하게 된다. 너희 자신의 태양계는 바로 그렇게 기원되었다.

15:5.6 (171.1) 4. 원심적인 행성 딸. 거대한 태양들은, 특정의 발달 단계에 도달할 때, 그리고 그들의 회전 속도가 크게 가속된다면, 그 모체 태양을 계속 도는, 작은 세계들을 형성하도록 곧 이어 조립될 수도 있는 많은 양의 물질을 방출하기 시작한다.

15:5.7 (171.2) 5. 중력-결핍 구체. 개별적 별들의 크기에는 임계적 한계가 있다. 태양이 이 한계에 도달할 때, 만일 그것의 회전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분리된다; 태양분열이 발생하고, 이 다양성을 갖는 새로운 한 쌍의 별이 태어난다. 수많은 작은 행성들이 이 거대한 분열의 부산물로서 뒤이어 형성되기도 한다.

15:5.8 (171.3) 6. 수축하는 별. 비교적 작은 체계들 안에서 가장 큰 외부 행성은 때로 그 주변에 있는 세계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반면, 태양 가까이에 있는 그 행성들은 그들의 마지막 돌진을 시작한다. 너희 태양계로 설명하면 그러한 종말은 네 개의 안쪽 행성들이 태양에 의해 이끌리고 반면 주요 행성인 목성은 남은 세계들을 사로잡음으로써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태양계의 그러한 종말의 결과로 두 개의 인접한 그러나 서로 틀린 태양들, 동일한

유형의 두 별의 형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격변들은 초우주 별 집단들의 주변 바깥쪽 이외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15:5.9 (171.4) 7. 누적되는 구체. 우주에서 돌아다니는 광대한 양의 물질로부터, 작은 행성들이 서서히 축적될 수 있다. 그것들은 유성(流星)이 불음으로써 그리고 약한 충돌들에 의해 커진다. 일정한 우주 구역의 경우, 그러한 형태의 행성 탄생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거주민이 사는 수많은 세계가 그렇게 기원되었다.

15:5.10 (171.5) 밀도가 높은 암흑섬들 중 일부는 우주 안에서 변화하는 에너지의 증가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암흑섬들의 다른 집단은 거대한 양의 차가운 물질, 우주를 떠도는 단순한 단편들과 운석들의 축적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 그러한 물질 집단은 한 번도 뜨거워진 적이 없으며, 밀도를 제외하고는 구성 면에 있어서 유란시아와 매우 흡사하다.

15:5.11 (171.6) 8. 타 버린 태양. 공간의 암흑섬들 중 일부는 타 버린 고립된 태양들인데, 가용(可用) 공간-에너지가 모두 방출된 상태이다. 조직된 물질 단위들은 충만한 응축,

실질적으로 완료된 응축에 가까우며; 크게 응축된 물질적 그러한 거대한 덩어리가 공간 순환회로들 안에서 다시 충전되고 그리하여 어떤 충돌 또는 똑같이 환원시키는 조화우주 사건 뒤에 우주 기능의 새로운 순환을 준비하게 되기까지는 길고도 긴 세월이 요구된다.

15:5.12 (171.7) 9. 충돌 구체. 비교적 촘촘하게 성단(星團)을 이루는 그 지역들의 경우에는, 충돌이 희귀한 일이 아니다. 그러한 천문상의 재조절은 거대한 에너지 변화와 물질 변형이 동반된다. 죽은 태양들을 포함하는 충돌들은 널리 퍼진 에너지 동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독특하게 영향을 준다. 충돌 파편들은 나중에 행성 몸체들이 필사자 거주에 알맞게 형성되도록 물질적 핵들을 종종 구성한다.

15:5.13 (172.1) 10. 고안건축 세계. 너희 지역우주의 본부인 구원자별, 그리고 우리 초우주의 정부의 소재지인 유버사와 같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한 계획과 설계도에 따라 세워진 세계들이 있다.

15:5.14 (172.2) 태양을 진화시키고 행성을 분리시키는 많은 다른 기법들이 있지만, 앞에서 말한 과정들은 거의 대부분의 별 체계들과 행성 집단이 실존하게 되는 방법들을 암시한다.

별의 탈바꿈과 행성이 진화하는 것과 관련되는 모든 다양한 기법들을 적으려고 시도하려면 거의 100가지 다른 방법으로 태양이 형성되고 행성이 기원된다는 것을 설명해야만 한다. 너희 별 연구자들이 하늘을 살펴보면 별이 진화하는 이 모든 양상들을 알려주는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겠지만, 거주민이 사는 행성들로서 이용되는 물질인, 그 작은 광채가 없는 물질더미들, 광대한 물질적 창조계의 가장 중요한 것의 형성에 대한 증거를 포착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제 6 장. 공간의 구체

15:6.1 (172.3) 기원에 상관없이, 공간의 다양한 구체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 분야로 구분된다:

15:6.2 (172.4) 1. 태양들—공간의 별.

15:6.3 (173.1) 2. 공간의 암흑섬.

15:6.4 (173.2) 3. 작은 공간 몸체들—혜성, 운석, 작은 행성체.

15:6.5 (173.3) 4. 행성,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을 포함

15:6.6 (173.4) 5. 고안건축 구체들—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세계.

15:6.7 (173.5) 고안건축 구체들은 제외하고는, 모든 우주
몸체들은 진화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진화적이라는 것은 신(神)의 명령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진화적이며, 창조되었거나 그리고
결국 생겨난 많은 신(神)의 지능체들의 작용을 통하여 두루
하느님의 창조적 활동들이 시간-공간 기법에 따라서
펼쳐져 왔다는 의미에서의 진화적이다.

15:6.8 (173.6) 태양. 이것들은 그들의 모든 다양한 실존의
단계들에 있는
우주의 별들이다. 어떤 것들은 홀로 진화하는 공간 체계들이
다; 다른 것들은 이중적 별들, 수축하거나 없어지는 행성
체계들이다. 우주의 별들은 1,000여 개에 이르는 서로 다른
상태들과 단계들로 존재한다. 너희는 열을 수반하면서
빛을 내는 태양에 익숙해 있지만; 열을 내지 않고 빛나는
태양들도 있다.

15:6.9 (173.7) 평범한 태양 하나가 열과 빛을 수 조(兆) 년 동안
계속 방출할 것이라는 사실은 물질의 각 단위가 포함하는
에너지의 광대한 저장량을 잘 설명해 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물질 입자들 속에 저장된 실재적인 에너지는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타오르는 태양들의 내부에 존재하는 엄청난 열 압력과 그에 연관된 에너지 활동에 종속될 때, 거의 전부가 빛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조건들이 이 태양들로 하여금 확립된 공간 순환회로들 안에서 자신들의 길을 따라오는 공간의 에너지 대부분을 변환시키고 방출해 낼 수 있게 한다. 물리적 에너지의 여러 위상들과 물질의 모든 형태들은 태양 발전기로 끌려 들어가고 뒤이어 그것에 의해 분배된다. 그 태양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자동적인 힘-통제장소로서 에너지 순환의 지역적 가속자(加速者)들로서 봉사한다.

15:6.10 (173.8) 오르본톤 초우주는 10조 개가 넘는 타오르는 태양들에 의해 빛을 받고 따듯해진다. 이 태양들은 너희가 관찰할 수 있는 천문 체계에 속하는 별들이다. 2조 개 이상은 너무 멀리 있고 너무 작아서 유란시아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주(主)우주 안에는 너희 세계의 바닷물을 유리잔에 담을 때 그 잔의 개수만큼 많은 태양들이 있다.

15:6.11 (173.9)

공간의 암흑섬. 이것들은 죽은 태양들 그리고 빛과 열이 없는 물질의 거대한 다른 집합체들이다. 암흑섬들은 때로 거대한 덩어리이며 우주 평형과 에너지 처리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을 발휘한다. 이 큰 덩어리들 중 일부의 밀도는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거대하게 농축된 이 덩어리는 이들 암흑섬들로 하여금 강력한 평형 바퀴의 역할을 하게 하는데, 이웃에 있는 큰 체계들을 효과적인 끈으로 붙들고 있다. 그것들은 많은 별자리들 안에서 힘의 중력 균형을 유지한다; 그것들이 없다면 가까이에 있는 태양들 안으로 급속도로 파괴되어 들어갈 많은 물리적 체계들이 이 수호자 암흑섬들의 중력 지배 속에 안전하게 붙잡혀 있다. 이 기능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빛을 내는 몸체들의 중력 작용을 측정해 왔으며, 따라서 우리는 공간의 암흑섬들의 정확한 크기와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주어진 체계를 그 경로 안에 붙잡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15:6.12 (173.10)

작은 공간 몸체. 유성들과 우주 안에서 떠돌고 진화하는 물질의 다른 작은 입자들이 에너지와 물질 본체의 거대한 집합체를 구성한다.

15:6.13 (173.11) 많은 혜성들은 태양 모체(母體) 바퀴의 정돈되지 않은 거친 자손인데, 그것들은 중앙에서 지배하는 태양의 통제 밑으로 점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혜성들은 또한 수많은 다른 기원들을 갖는다. 혜성의 꼬리는 잡아당기는 몸체나 태양으로부터의 흔적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크게 팽창된 기체들의 전기적 반작용 때문이며 그 태양으로부터 방사되는 빛 그리고 다른 에너지들의 실재적 압력 때문이다. 이 현상은 빛의 실체 그리고 그와 연관된 에너지들에 대한 명확한 증명들 중 하나를 구성한다; 그것은 빛이 무게를 갖고 있음을 실증한다. 빛은 실제 물질이며, 단순히 가정적인 에테르의 파동이 아니다.

15:6.14 (173.12) 행성. 이것들은 하나의 태양 또는 어떤 다른 공간 몸체 주변의 궤도를 따라가는 물질의 더욱 큰 집합체이다; 그것들의 크기의 범위는 작은 행성으로부터 거대한 기체나 액체 또는 고체의 구체에까지 이른다. 떠도는 공간 물질의 조합에 의해 만들어져 온 차가운 세계들은, 그것들이 우연히 가까이에 있는 태양과 적당한 관계를 갖게 될 때, 지능적인 거주민들이 정착하기에 더욱 이상적인 행성이다. 대체로, 식어버린 태양들은 창조체에게 적합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대개 살아있는,

타오르는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그것들은 너무 부피가 크며; 중력이 그 표면에서 너무 크다.

15:6.15 (173.13) 너희 초우주의 경우에 40개 중 한 개의 차가운 행성도 너희 계층의 존재들이 거주할 수 없다. 그리고 물론 과도하게 가열된 태양들과 주변의 얼어붙은 세계들은 비교적 높은 창조체를 정착시키기에 적합하지 않다. 너희 태양계 안에서는 오직 세 개의 행성들만이 현재 창조체를 정착시키기에 적합하다. 크기와 밀도와 위치에 있어서, 유란시아는 많은 점에서 인간 거주지로 이상적이다.

15:6.16 (173.14) 물리적-에너지 활동 법칙들은 기본적으로 우주적이지만, 개별 행성들 그리고 지역체계들을 지배하는 물리적 조건에 대해서는 지역적 영향력들이 많이 작용한다. 창조체 그리고 다른 살아있는 현시활동들의 거의 끝없는 다양성이 공간의 셀 수 없는 세계들을 특징짓는다. 아무튼, 주어진 체계 안에서 연관된 세계들의 한 집단 안에는 일정한 관점의 유사성이 존재하는 반면, 또한 지능창조체의 우주 원형들도 존재한다. 같은 물리적 순환회로에 속하는 행성 체계들

사이에는 물리적 관계들이 존재하며, 그것은 우주들의 순환계 둘레를 끝없이 진동하면서 서로 가깝게 따라간다.

제 7 장. 고안건축 구체

15:7.1 (174.1) 각 초우주 정부가 그것의 공간 구역의 진화하는 우주들의 중심 가까이에 위치하는 반면, 그것은 계층에 따라 만들어진 어떤 세계를 차지하고 공인된 개인성들로 채워져 있다. 이 본부 세계들은 고안건축 구체들, 그들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이하게 구축된 공간 몸체들이다. 한편으로는 가까이에 있는 태양들의 빛을 공유하지만, 이들 구체들은 독립적으로 빛을 받고 열을 받는다. 각각은 파라다이스의 위성들과 마찬가지로 열없이 빛을 발하는 하나의 태양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각각에게는 그 구체의 표면 가까이에 있는 일정한 에너지 흐름의 순환으로 인해 열이 공급된다. 이 본부 세계들은 그들 각각의 초우주들의 천문상의 중심 주변에 위치한 더 큰 체계들 중 하나에 속해 있다.

15:7.2 (174.2) 시간은 초우주들의 본부에서 표준화되어 있다. 오르본톤 초우주의 표준일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거의 30일에 해당하며, 오르본톤의 1년은 100 표준일과 같다. 이

유버사의 한 해가 일곱 번째 초우주 안에서 표준이 되며,
그것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3,000일보다 22분 짧은데, 너희
햇수로 볼 때 약 8과 5분의 1년이 된다.

15:7.3 (174.3) 일곱 초우주들의 본부 세계들은 파라다이스의
본성과 웅장함, 그들의 완전의 중심 원형들을 함께한다.
실체로서, 모든 본부 세계들은 파라다이스와 같다. 그들은
정말로 천상의 거주지이고, 그들은 예루셈에서 중앙
섬까지 물질적 크기, 모론시아 아름다움 그리고 영(靈)
영광에서 증가한다. 그리고 이 본부 세계들의 모든 위성들
역시 고안건축 구체들이다.

15:7.4 (174.4) 다양한 본부 세계들에는 모든 위상의 물질적
그리고 영적 창조가 제공되어 있다. 모든 종류의 물질적,
모론시아적, 그리고 영적 존재들이 우주들의 이 집합장소
세계들에서 편히 지내고 있다. 필사 창조체들이 우주를
상승할 때, 물질적 영역으로부터 영적 영역으로
지나가면서, 그들의 그 이전 실존의 차원들에 있는 감사와
즐거움을 결코 잃지 않는다.

15:7.5 (174.5) 예루셈은, 사타니아라는 너희 지역체계의
본부인데, 과도기 문화의 일곱 세계들을 갖고 있다, 그

각각은 일곱 위성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중에는 모론시아 억류의 일곱 거주세계들, 사람의 첫 사후(死後) 거주지가 있다. 하늘이라는 말이 유란시아에서 사용되어 왔을 때, 그것은 때로 이 일곱 맨션세계들을 의미해 왔는데, 첫 맨션세계는 첫 하늘이라고 불리고, 그런 식으로 일곱 번째까지 계속된다.

15:7.6 (174.6) 에덴시아는, 놀라시아텍이라는 너희 별자리의 본부인데, 사회화하는 문화와 훈련의 70개 위성들을 갖고 있으며, 그 위에서 상승자들은 개인성 동원과 통일 그리고 실현이라는 예루셈 체제의 완성 위에서 머무른다.

15:7.7 (174.7) 구원자별은, 너희 지역우주 네바돈의 수도인데, 각각 49개의 구체들을 갖는 10개의 대학 군(群)들로 둘러싸여 있다. 여기서부터 사람이 자신의 별자리 사회화를 마치면서 영성화 한다.

15:7.8 (174.8) 제3 유-소서울은, 너희 소구역 엔사의 본부인데, 상승하는 삶의 보다 높은 물리적 연구의 일곱 구체들로 둘러싸여 있다.

15:7.9 (174.9) 제5 유-대서울은, 너희 대구역 스프랜돈의 본부인데, 그 초우주의 전진하는 지능 훈련의 70개 구체들로 둘러싸여 있다.

15:7.10 (175.1) 유버사, 너희 초우주인 오르본톤의 본부는, 상승하는 의지적 창조체들을 위한 전진하는 영적 훈련을 시키는 일곱 개의 비교적 높은 대학들에 의해 즉각적으로 둘러싸여 있다. 놀라운 구체인 이 일곱 군(群) 각각은 시간의 순례자들이 하보나를 향한 긴 비행에 앞서 재교육되고 재시험되는 우주 훈련 그리고 영 문화에 헌신된 수천 수만에 이르는 총만한 연구소들과 조직들을 포함하는 70개의 특별 세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의 순례자들이 도착함은 이들 연관된 세계들에서 늘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떠나가는 졸업생들은 항상 유버사의 바닷가로부터 직접 하보나 방향을 향해 파송된다.

15:7.11 (175.2) 유버사는 대략 1조에 이르는 거주민이 사는 또는 거주 가능한 세계들을 위한, 영적 그리고 행정-관리적 본부이다. 오르본톤 수도의 영광과 장려함과 완전성은 시간-공간 창조계의 어떤 경이로움보다도 뛰어나다.

15:7.12 (175.3) 만일 구체적으로 투사된 지역우주 그리고 그 구성 부분들 전체가 확립되면, 일곱 초우주에는 5,000억 개보다 약간 적은 고안건축 세계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제 8 장. 에너지 통제와 규제

15:8.1 (175.4) 그 초우주들의 본부 구체들은, 그들의 구성 지역우주들에게 에너지의 방향성구현에 대한 초점으로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건설되었기에, 그들의 다양한 구역들을 위한 효과적인 힘-에너지 규제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들은 조직된 공간에 두루 순환하는 물리적 에너지들을 균형 잡고 통제하는 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15:8.2 (175.5) 더 깊은 규제적 기능들은 초우주 힘 중심들과 물리통제자들, 특정한 이 목적을 위해 구성된 생명의 그리고 반 생명의 지능 실존개체들에 의해 수행된다. 이들 힘 중심들과 통제자들을 납득하기는 어려우며; 비교적 낮은 계층들은 의지적이지 않으며, 그들은 의지를 소유하지 않는다. 그들은 선택하지 않으며, 그들의 기능들은 매우 지능적이지만 겉보기에 자동적이며 그들의 매우 전문화된 조직으로 선천적이다. 그 초우주들의 힘

중심들과 물리통제자들은 중력소(重力素)권역을 구성하는 30개 에너지 체계들에 대한 방향과 부분적 통제를 떠맡는다. 유버사의 힘 중심들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물리적-에너지 순환회로들은 그 초우주를 한 바퀴 돌기까지 9억 6,800 만 년보다 약간 더 걸린다.

15:8.3 (175.6) 진화하는 에너지는 본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록 무게가 항상 상대적이고, 회전 속도, 질량 그리고 반(反)중력에 달려 있지만, 그것은 무게를 갖고 있다. 물질에서 질량은 에너지의 속도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 어느곳에나-제시되는 에너지의 속도는 다음과 같다: 최초의 주어진 속도의 자질에서, 이동 중에 발생하는 질량에 의한 지연을 빼고, 초우주의 살아있는 에너지 통제자들의 규제 기능과 근처의 높게 가열된 또는 무겁게 충전된 몸체들의 물리적 영향을 더한 것이다.

15:8.4 (175.7) 물질과 에너지 사이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우주적 계획은 작은 물질 단위(單位)들을 만들고 부수는 영속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우주 힘 지도자들은 다양한 양의 에너지를 응축하고 억류하거나 확대하고 방출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15:8.5 (175.8) 지연시키는 영향력이 충분한 기간 동안 주어진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요인들이 없다면 중력은 결국에는 모든 에너지를 물질로 바꿀 것이다: 첫째, 에너지 통제자들의 반(反)중력 영향력 때문이고, 둘째 아주 뜨거운 별에서 발견되는 어떤 조건 아래에서, 그리고 크게 에너지화된 응축된 물질의 차가운 몸체 근처의 공간에서 어떤 특별한 조건하에서, 조직화된 물질의 집대성이-해체하는 경향 때문이다.

15:8.6 (176.1) 질량이 과도하게 집적되어 에너지 균형을 깨트릴, 물리적 힘 순환회로들을 고갈시킬 위험이 있을 때, 공간의 죽은 거성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함으로써 누적된 중력의 집합을 한 순간에 완벽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지나치게 물질화하는 중력 자체의 계속적인 경향이 무효가 되지 않으면, 물리통제자들이 개입한다. 이러한 충돌의 에피소드에서 물질의 거대한 덩어리들은 가장 보기 드문 형태의 에너지로 갑자기 변환되며, 우주적 평형을 위한 투쟁이 새롭게 시작된다. 결국에는 비교적 큰 물리적 체계들이 안정을 이루게 되고, 물리적으로 정착되며, 초우주들의 균형이 잡히고 확립된 순환회로들 안으로 휘돌아 회전해 들어간다. 이 결과 이후에는 그러한

확립된 체계들 안에서는 더 이상 충돌 또는 황폐하게 만드는 다른 격변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15:8.7 (176.2) 양(陽) 에너지 시대에는 힘 교란과 열 동요가 전기적 현시활동을 동반한다. 음(陰) 에너지 시대 동안에는, 물질이 집합하고 응축하며 좀 더 섬세하게 균형이 잡힌 순환회로들에서 통제를 벗어나려는 경향이 증가하는데, 그 결과로 주기적인 물결 같거나 혹은 부딪치는 조절이 오며 그것이 순환하는 에너지와 더 실질적으로 안정된 물질 사이의 균형을 재빨리 회복시킨다. 타오르는 태양들과 공간의 암흑섬들의 습성이 될 만한 것들을 예측하는 일 또는 납득하는 일은 천상의 별 관찰자들의 임무들 중의 하나이다.

15:8.8 (176.3) 우리는 우주 평형을 다스리는 법칙들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우주 안정성에 관하여 많이 예측할 수 있다. 실천적으로, 우리의 예측은 신뢰할 만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진 에너지 통제와 물질 작용의 법칙에 전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어떤 기세들과 항상 대면하게 된다. 모든 물리적 현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우리가 파라다이스로부터 밖으로 진행함에 따라 점점 더

어려워진다. 우리가 파라다이스 통치자들의 직접적 관리-행정의 경계 너머를 지나갈 때, 우리는 확립된 표준들에 따라 그리고 근처에 있는 천문상의 체계들의 물리적 현상에 행하는 배타적으로 가진 관찰들과 관련되어 얻어진 체험에 따라 계산 할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일에 직면한다. 심지어는 일곱 초우주들의 영역들 안에서도 우리는, 모든 우리의 권역에 가득 퍼져있고 외부 공간의 모든 지역들에 두루 통합된 평형에서 확장되어 있는, 기세 활동들과 에너지 반응들의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15:8.9 (176.4) 우리가 더 멀리 밖으로 나갈수록, 우리는 절대자들과 체험적 신(神)들의 헤아릴 수 없는 현존-활동행위들의 그렇게 틀림없는 특징인, 저 변동하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현상들에 점점 더 많이 부딪힌다. 그리고 이들 현상들은 만물에 대한 어떤 우주적 전반적-통제를 암시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15:8.10 (176.5) 오르본톤 초우주는 겉으로 보기에 지금 쇠약해지고 있다; 외부 우주들은 전례 없는 미래 활동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앙 하보나 우주는 영원히 안정되어 있다. 중력과 열의 부재(차가움)는

물질을 함께 조직하고 붙잡는다; 열과 반(反)중력은 물질을 분열시키고 에너지를 발산시킨다. 살아있는 힘 지도자들과 기세조직자들은 우주를 만들고, 만들지 않고, 그리고 다시 만드는 끝없는 형태변형들을 특별히 통제하고 지능적으로 지도하는 비밀이다. 성운들은 흩어지고 태양들은 타버리고 체계들은 사라지고 행성들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우주들은 멈추지 않는다.

제 9 장. 초우주의 순환회로

15:9.1 (176.6) 파라다이스의 우주적 순환회로들이 일곱 초우주들의 영역들에 실재적으로 가득 퍼져있다. 이 현존 순환회로들은 다음과 같다: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 중력(重力), 영원한 아들의 영적 중력, 공동 행위자의 마음 중력, 영원 섬의 물질적 중력.

15:9.2 (177.1) 우주적 파라다이스 순환회로들 이외에 그리고 절대자들 그리고 체험적 신(神)들의 현존-활동행위들 이외에, 초우주 공간 차원 안에서는 오직 두 에너지-회로 부문, 곧 힘 분할이 기능하는데 : 초우주 순환회로들과 지역우주 순환회로들이다.

15:9.3 (177.2) 초우주 순환회로들:

15:9.4 (177.3) 1. 파라다이스의 일곱 주(主) 영들 중 하나의 통합하는 지능적 순환회로. 그러한 조화우주-마음 순환회로는 하나의 초우주로 제한된다.

15:9.5 (177.4) 2. 각 초우주 안에 있는 일곱 반영 영들의 반영하는-봉사 순환회로.

15:9.6 (177.5) 3. 신비 감시자들의 비밀 순환회로. 신성별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파라다이스에 있는 우주 아버지에게 상호-연관시키고 연결해 준다.

15:9.7 (177.6) 4. 영원한 아들이 자신의 파라다이스 아들과 상호 교제하는 순환회로.

15:9.8 (177.7) 5. 무한한 영의 순간적 현존.

15:9.9 (177.8) 6. 파라다이스의 방송, 하보나의 공간 보고서.

15:9.10 (177.9) 7. 힘 중심들과 물리통제자들의 에너지 순환회로.

15:9.11 (177.10) 지역우주 순환회로들:

15:9.12 (177.11) 1.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증여 영, 증여 세계의 위로자. 진리의 영, 유란시아에서의 미가엘의 영.

15:9.13 (177.12) 2. 신성한 사명활동자들, 지역우주 어머니 영들, 너희 세계의 성령의 순환회로

15:9.14 (177.13) 3. 다양하게 기능하는 보조 마음-영들의 현존을 포함하여, 지역우주의 지능-사명활동 순환회로.

15:9.15 (177.14) 지역우주 안에 그러한 영적 조화가 발전되어 그것의 개별적 그리고 병합된 순환회로들이 그 초우주의 순환회로들로부터 구별할 수 없게 되면, 기능의 그러한 정체성과 사명활동의 하나 됨이 실재적으로 지배하게 되면, 그 지역우주는 빛과 생명의 정착된 순환회로들 안으로 즉시 휘돌아 회전하며 들어오는데, 초(超)창조의 완전해진 연합에 대한 영적 동맹 안으로 들어오는 자격을 즉시 갖추게 된다.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협의회에 들어가도록 허락되는 조건들, 초우주 동맹 안에서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5:9.16 (177.15) 1. 물리적 안정성. 지역우주의 별들과 행성들이 평형의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즉각적인 별의 탈바꿈 기간이 끝나야만 한다. 우주는 어떤 분명한 행로를 따라 진행해야만 하며; 그 궤도는 안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착되어야만 한다.

15:9.17 (177.16) 2. 영적 충성심. 그러한 지역우주의 관련사들을 지배하는 하느님의 주권자 아들에 대한 우주적 이해와 그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만 한다. 전체 지역우주의 개별 행성들, 체계들, 그리고 별자리들 사이에 조화로운 협동의 상태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15:9.18 (177.17) 너희 지역우주는 그 초우주의 정착된 물리적 계층에 속한다는 인정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고, 초(超)정부의 인정받는 영적 집단의 회원으로서 남기에는 더욱 부족한 상태이다. 비록 네바돈이 유버사에 아직도 대표자를 보내지 못하지만, 내가 유버사로부터 유란시아로 직접 온 것과 마찬가지로, 초우주 정부에 속한 우리는 때때로 특별한 임무를 띠고 그 세계들에게 보내진다. 우리는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너희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도움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 우주가 초우주 집단의 연관된 창조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충만하게 인정될 정도로 분별화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제 10 장. 초우주의 통치자

15:10.1 (178.1) 초우주들의 본부들은 시간-공간 영역들에 대한 높은 영적 정부가 있는 자리들이다. 초(超)정부의 행정 분야는, 삼위일체의 협의회들에서 지원되는데, 최극 감독의 일곱 주(主) 영들 중 한 분, 파라다이스 권한의 보좌들에 앉아 있고 그리고 무한한 영의 일곱 특별 세계들, 파라다이스의 가장 밖에 있는 위성들에 위치한 일곱 최극집행자들을 통하여 초우주들을 관리-운영하시는 분에 의해 즉각적으로 지도된다.

15:10.2 (178.2) 그 초우주 본부들은 반영 영들과 반영 영상 도움자들이 거하는 곳들이다. 이 중도적 위치로부터 이 기이한 존재들은 그들의 거대한 반영성 작업들을 행위로서 이끌며, 그리하여 위로는 중앙우주에 그리고 아래로는 지역우주에 사명활동한다.

15:10.3 (178.3) 각 초우주는 초(超)정부의 공동 우두머리 집행자들인 세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지배된다. 그것의 행정 분야에는 그 초우주 정부의 성원들이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다른 집단들을 구성한다:

15:10.4 (178.4) 1. 옛적으로 늘 계신이.

15:10.5 (178.5) 2. 지혜의 완전자.

15:10.6 (178.6) 3. 신성한 조연자.

15:10.7 (178.7) 4. 우주 검열자.

15:10.8 (178.8) 5. 막강한 메신저.

15:10.9 (178.9) 6. 높은 권한자.

15:10.10 (178.10) 7. 이름-번호 없는 자.

15:10.11 (178.11) 세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10억 명의 지혜의 완전자들의 무리단에 의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데, 30억 명의 신성한 조연자들이 그들과 연관되어 있다. 10억 명의 우주 검열자들이 각 초우주 관리-행정에 배정되어 있다. 이 세 집단들은 조화-협동 삼위일체 개인성들인데,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신성하게 지원된다.

15:10.12 (178.12) 나머지 세 계층들, 막강한 메신저들과 높은 권한자들 그리고 이름-번호 없는 자들은, 영화롭게 된 상승하는 필사자들이다. 이 계층들 중 첫 번째는 상승 체제를 통하여 올라왔고 그랜환다의 시대에 하보나를

통해 지나갔다. 파라다이스를 달성하면서, 그들은 최종의
무리단에 모집되었고,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의해
포용되었으며, 그 후에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숭고한
업무에 배정되었다. 등급으로 볼 때, 이 세 계층들은
삼위일체화 달성의 아들들로 알려지는데, 이원적(二元的)
기원을 갖지만 지금은 삼위일체 봉사의 존재이다.
그리하여 초우주 정부의 행정 분야는 진화 세계들의
영화롭게 되고 완전하게 된 자녀들을 포함할 정도로
커지게 되었다.

15:10.13 (178.13) 초우주의 조화-협동 협의회는 앞에서 이름이
거론된 일곱 행정 집단들과 다음의 구역 통치자들 그리고
다른 지역 감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15:10.14 (179.1) 1. 완전히 늘 계신이들—초우주 대구역들에
대한 통치자.

15:10.15 (179.2) 2.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들—초우주 소구역들에
대한 지도자.

15:10.16 (179.3) 3. 연합으로 늘 계신이들—지역우주의
통치자들에 대한 파라다이스 충고자.

15:10.17 (179.4) 4. 충심으로 늘 계신이들—별자리 정부들의
지고자 통치자들에 대한 파라다이스 조언자.

15:10.18 (179.5) 5. 초우주 정부에서 임무를 수행할 기회가 있는
삼위일체 교사 아들.

15:10.19 (179.6) 6. 초우주 본부에 나타나기도 하는 영원으로 늘
계신이.

15:10.20 (179.7) 7. 일곱 반영 영상 도움자들—일곱 반영 영들의
대변인들과 그들을 통한 파라다이스의 일곱 주(主) 영들의
대표자.

15:10.21 (179.8) 반영 영상 도움자들은 또한 초우주 정부 안에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들로 구성된 수많은 집단들에 대한
대표자들로써 기능하기도 하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들의 개별적 능력을 충만하게 발휘하지
않고 있다. 이 집단에 포용되는 것들은 최극존재의
진화하는 초우주 개인성 현시활동, 그 최극자의 분별불가
감독자들, 분별화된 궁극자 대관들, 장엄자의 이름없는
연락 반영자, 그리고 영원한 아들의 초(超)개인적 영
대리자들이다.

15:10.22 (179.9) 초우주들의 본부 세계들에 있는 창조된 존재들로 구성된 모든 집단들의 대표자들을 발견하는 일은 거의 언제나 가능하다. 그 초우주들의 일상적인 사명활동 작업은 막강한 2품천사들에 의해 그리고 무한한 영의 광대한 집단에 속하는 다른 성원들에 의해 수행된다. 초우주 관리-행정, 통제, 사명활동, 그리고 집행적 판단을 수행하는 이 놀라운 중심들의 활동에 있어서, 우주 생명의 모든 구체의 지능체들은 효과적인 봉사, 현명한 관리-행정, 사랑 넘치는 보살핌, 그리고 공정한 심판에 관여한다.

15:10.23 (179.10) 초우주들은 어떤 종류의 대사 대표부를 유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완벽하게 각자가 서로 고립되어 있다. 그들은 일곱 주(主) 영에 의해 유지되는 파라다이스 정보 중심을 통해서만 서로의 관련사들을 안다. 그들의 통치자들은 우주적 창조의 다른 지역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에 상관없이 자기들 자신의 초우주의 복지를 위해서만 신성한 지혜의 협의회 안에서 활동한다. 진화하는 체험적인 최극존재의 개인성-주권의 더욱 완벽한 실제화에 의해, 그들의 조화-협동이 달성되는 그러한 시기까지, 초우주들의 그 고립은 계속될 것이다.

제 11 장. 심의회(審議會)

15:11.1 (179.11) 완전성의 독재정치와 진화하는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존재들이 서로 대면하여 만나는 것은 유버사와 같은 그러한 세계들에서이다. 초(超)정부의 집행부서는 완전성의 영역들 안에서 지원된다; 입법부서는 진화적 우주들의 꽃이 피어나는 것에서 솟아나온다.

15:11.2 (179.12) 초우주의 심의회는 본부 세계로 국한된다. 이 입법 곧 자문 협의회는 일곱 회의들로 구성되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는 초우주 협의회들에 받아들여진 모든 지역우주가 한 원주민 대표자를 선출한다. 이 대표자들은 하보나로 이동하도록 공인된, 유버사에 머물고 있는, 오르본톤의 상승하는-순례자 졸업생들 가운데로부터 그러한 지역우주들의 높은 협의회들에 의해 선택된다. 평균 봉사 기간은 초우주 표준시간으로 약 100년이다.

15:11.3 (180.1) 나는 오르본톤 집행자들과 유버사 회의 사이에 불일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우리 초우주의 역사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 초(超)정부의 집행부서가 수행하기를 망설일 만 하였던 어떤 충고도 내보낸 적이 전혀 없다. 가장 완전한 조화와 실용적 동의가 항상 지배해 왔는데, 모든 것은 진화적 존재들이, 그들로

하여금 완전한 기원과 신성한 본성의 개인성들과 어울리도록 자격을 갖추게 한 완전한 지혜의 정점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초우주 본부에서의 심의회들의 현존은 우주 아버지와 그의 영원한 아들의 광대한 진화적 개념 전체의 지혜를 계시하며, 그것의 궁극적 승리를 예시한다.

제 12 장. 최극 재판소

15:12.1 (180.2) 우리가 유버사 정부의 집행과 심의 부서들을 이야기할 때, 너희는 일정한 형태의 유란시아 시민 정부의 유사성에서 비추어서, 우리가 세 번째, 사법부를 틀림없이 가졌다고 추론 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별도의 인원을 갖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의 법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사례의 본성과 중력에 맞추어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 지혜의 완전자, 또는 신성한 조연자가 주관한다. 검열자들에 의해 개별존재, 행성, 체계, 별자리, 또는 우주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거가 제시되고 풀이된다. 시간의 자녀들과 진화적 행성들에 대한 변론은 막강한 메신저들, 지역우주와 지역체계들에 대한 초우주 정부의 공식 관찰자들에 의해 제공된다. 보다 높은 정부의 입장은 높은 권한자들에 의해 설명된다. 그리고 그 판결은

통상적으로, 이름-번호 없는 자들과 심의회로부터 선택된 일단(一團)의 납득하고 있는 개인성들로 동일하게 구성된, 다양한 크기의 위원회에 의해 작성된다.

15:12.2 (180.3)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들은 모든 구성요소 우주들에 대한 영적 판결을 위한 고등 재심재판소들이다. 지역우주들의 주권자 아들들은 그들 자신의 권역 안에서 최극이다; 그들은 의지적 창조체들의 소멸을 포함하는 문제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 의한 조언 또는 판결을 위해 그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들을 제시하는 한에서만 그 초(超)정부에 종속된다. 판결의 명령들은 그 지역우주 안에서 기원되지만, 의지적 창조체들의 소멸을 포함하는 선고는 항상 초우주 정부의 본부에서 작성되고 거기로부터 집행된다. 지역우주들의 아들들이 필사 사람의 생존을 선포할 수 있지만, 오직 옛적으로 늘 계신이만이 영원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집행적 판단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15:12.3 (180.4) 심리, 증거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의 경우에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 또는 그들의 연관-동료들이 결정을 내리고, 이 판결들은 항상 만장일치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의 협의회들을 다루고 있다. 이들 최극 그리고 최상급 법정들의 선포에는 불일치도 없고 사소한 의견도 없다.

15:12.4 (180.5) 거의 예외 없이 초(超)정부들은 그들 각각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존재들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한다. 초(超)우주의 판결과 결정에 대한 항소는 발생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 관련된 초우주의 운명을 파라다이스로부터 주관하는 그 주(主) 영의 동시에 작용하는 의견들을 그들이 대표하기 때문이다.

제 13 장. 구역 정부

15:13.1 (181.1) 대구역은 한 초우주의 약 10분의 1을 이루고 100개의 소구역들, 10,000개의 지역우주들, 약 1천억 개의 거주가능 세계들로 구성된다. 이 대구역들은 3명의 완전으로 늘 계신이, 최극삼위일체 개인성들에 의해 관리-운영된다.

15:13.2 (181.2) 완전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들은 그들이 영역에 대한 영적(靈的) 판결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들과 거의 동일하게 구성된다.

이 대구역 정부들의 업무는 멀리-퍼지는 창조의 지적 지위에 주로 관여한다. 대구역들은, 영역들의 영적 관리-행정에, 또는 파라다이스 통치자들의 필사자-상승 계획 수행에 즉각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일상적이고도 관리-행정적 본성의 모든 초우주 중요성인 문제들을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에 보고하기 위하여 유보하고 판결하며 시행하고 요약한다. 대구역 정부의 성원은 초우주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15:13.3 (181.3) 유버사의 장엄한 위성들이 하보나를 향한 너희의 최종적인 영적 준비에 관여하는 것처럼, 제5 유-대서울의 70개 위성들도 너희 초우주 지적훈련과 발달에 기여한다. 전체 오르본톤으로부터, 시간의 필사자들로 하여금 영원의 생애를 향하여 그들이 더욱 진보하도록 준비하기 위해 지치지 않고 수고하는 현명한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모여 있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에 대한 이 훈련의 대부분은 70개 연구 세계들에서 수행(遂行)된다.

15:13.4 (181.4) 소구역 정부들은 3명의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주관된다. 그들의 관리-행정은 주로 물리적 통제, 통일, 안정, 그리고 구성요소 지역우주들 관리-행정의

일상적 조화-협동에 주로 관련된다. 각각의 소구역에는 100개의 지역우주들, 1만 개의 별자리들, 1백만 개의 체계들, 곧 약 10억 개의 거주가능 세계들을 포용한다.

15:13.5 (181.5) 소구역 본부 세계들은 주(主)물리통제자들의 거대한 집합장소들이다. 이 본부 세계들은 7개의 교육 구체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들은 그 초우주로 들어가는 학교들을 구성하며 우주들의 우주에 관한 물리적 그리고 행정-관리적 지식을 위한 훈련 중심지들이다.

15:13.6 (181.6) 소구역 정부의 행정-관리자들은 대구역 통치자들의 직속 관할 아래에 있다.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는 관찰된 모든 보고들을 받아들이며 그 지역우주들의 본부 구체 위에 삼위일체 관찰자들 그리고 충고자들로써 머물고 있는 연합으로 늘 계신이로부터 그리고 그 별자리들의 본부에 있는 지고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들에 비슷하게 배정된 충심으로 늘 계신이로부터 초우주로 올라온 모든 추천들을 조화-협동한다. 그러한 모든 보고서들은 대구역에 있는 완전으로 늘 계신이에게 보내지고, 그 후에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으로

전달된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체제는 그 지역우주들의 별자리들로부터 초우주의 본부에 이르기까지 확장한다. 지역체계 본부들에는 삼위일체 대표들이 없다.

제 14 장. 일곱 초우주의 목적

15:14.1 (181.7) 일곱 초우주의 진화 안에 펼쳐지고 있는 일곱 가지 주요 목적들이 있다. 초우주 진화에서 각 주요 목적은 일곱 초우주들 중 각 하나에서만 오직 가장 충만한 표현을 이룰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초우주 각각은 특별한 기능과 독특한 본성을 갖는다.

15:14.2 (182.1) 너희 지역우주가 소속된, 일곱 번째 초우주인 오르본톤은, 그 영역의 필사자들에 대한 거대하고도 풍부한 자비로운 사명활동의 그 증여 때문에, 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영원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간을 희생시키는 것이 자유롭게 되는 한편, 자비로 부드러워진 공의가 지배하고 인내로 조절된 힘이 통치하는 방법으로 유명하다, 오르본톤은 사랑과 자비에 대한 우주 증명이다.

15:14.3 (182.2) 아무튼, 오르본톤 안에 펼쳐지는 진화 목적의 참된 본성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힘들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서 넌지시 나타낼 수도 있다.

그것은 이 초(超)창조에 있어서 우리는 연관된 여섯 초(超)창조 안에 현시된 조화우주 진화의 독특한 여섯 목적들이 하나의-전체-의미로 여기에서 상호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때때로, 진화되고 완결된 최극자 하느님의 개인성구현이 먼 훗날에 그리고 유버사로부터, 그때 달성된 그의 전능한 주권적 힘의 모든 체험적 장엄함 안에서, 완전해진 일곱 초우주들을 다스리게 될 것을, 추측해왔다는 이유에서이다.

15:14.4 (182.3) 오르본톤이 본성에서 독특하고 운명에서 개별적인 것처럼, 그것과 연관된 여섯 개의 초우주들 각각 역시 그러하다. 그렇지만 오르본톤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주 많은 일들이 너희에게 계시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르본톤 삶에서는 계시되지 않은 이들 특징들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다른 어떤 초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표현을 찾도록 되어 있다. 초우주 진화의 일곱 가지 목적들은 모든 초우주들에 두루 작용하지만, 각각의 초(超)창조는 이 목적들 중 오직 하나에 대하여 가장 충만한 표현을 나타낼 것이다. 이 초우주 목적들에 대해 보다 더 납득하기 위하여, 너희가 납득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계시되어야만 할 것이며, 그 때가 되더라도 너희는 아주 적은 부분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체 소개는 너희 세계와 지역체계가 일부분을 이루는 거대한 창조를 잠깐 훑듯 스쳐본 것에 불과하다.

15:14.5 (182.4) 너희 세계는 유란시아라고 불리며, 사타니아의 행성 집단 곧 체계에서 606번째이다. 이 체계는 현재 619개의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을 갖고 있으며 200개 이상의 추가 행성들이 언젠가 미래시기에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이 되기 위하여 순조롭게 진화되고 있다.

15:14.6 (182.5) 사타니아에는 예루셈이라 불리는 본부 세계가 있고, 이것은 놀라시아텍 별자리에서 체계 번호 24번이다. 너희 별자리 놀라시아텍은 100개의 지역체계들로 구성되어 있고, 에덴시아라 불리는 본부 세계를 갖고 있다. 놀라시아텍은 네바돈 우주에서 70번째이다. 네바돈 지역우주는 100개의 별자리들로 구성되어 있고 구원자별이라고 알려진 수도를 갖고 있다. 네바돈 우주는 엔사 소구역에서 84번째이다.

15:14.7 (182.6) 엔사 소구역은 100개의 지역우주들로 구성되어 있고 제3 유-소서울이라 불리는 수도를 갖고 있다. 이 소구역은 스프랜돈이라는 대구역에서 3번째이다.

스프랜돈은 100개의 소구역들로 구성되어 있고, 제5 유-대서울이라 불리는 본부 세계를 갖고 있다. 그것은 대우주의 일곱 번째 분할인 오르본톤 초우주의 다섯 번째 대구역이다. 너희는 우주들의 우주의 조직과 관리-행정의 기획에서 너희 행성의 위치를 그렇게 알아볼 수 있다.

15:14.8 (182.7) 너희 세계 유란시아의 대우주 번호는 5,342,482,337,666 번이다. 그것은 유버사와 파라다이스에 등록된 번호,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 대한 목록에서의 너희 번호이다. 나는 물리적-구체 등록번호를 알지만, 그것은 그러한 비범한 크기는 필사자 마음에게 실천적인 의의(意義)가 거의 없다.

15:14.9 (183.1) 너희 행성은 거대한 조화우주의 일원이다; 너희는 거의 무한한 가족 세계들에 속하지만, 그러나 너희 구체는 모든 실존에서 마치 유일하게 거주민이 사는 세계인 것처럼 정확하게 관리-운영되고 사랑스럽게 양육되고 있다.

15:14.10 (183.2) [유버사에서 흩어져 나온 우주 검열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16 편 일곱 주(主) 영

16:0.1 (184.1) 파라다이스의 일곱 주(主) 영들은 무한 영의 1차 개인성들이다. 이 칠중 창조적 자아-복제(複製) 활동 안에서, 무한한 영은 신(神)의 세 개인들의 사실적 실존 안에 수리(數理)상으로 선천적인, 연관하는 가능성을 소진하였다. 더 큰 숫자의 주(主) 영들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했더라면, 그들은 창조되었을 것이지만, 단지 일곱 연관적 가능성들만이 있고, 그래서 세 신(神)들 안에 선천적인, 오직 일곱 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가 왜 광범위한 일곱 부분들로 운영되는지를, 그리고 왜 일곱이라는 숫자가 그 조직과 관리-행정에서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있는가를 설명한다.

16:0.2 (184.2) 그래서 일곱 주(主) 영들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닻음에서, 그들의 기원을, 그로부터 유래된 그들의 개별적 특징들을 가진다:

16:0.3 (184.3) 1. 우주 아버지.

16:0.4 (184.4) 2. 영원한 아들.

16:0.5 (184.5) 3. 무한한 영.

16:0.6 (184.6) 4. 아버지와 아들.

16:0.7 (184.7) 5. 아버지와 영.

16:0.8 (184.8) 6. 아들과 영.

16:0.9 (184.9) 7.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

16:0.10 (184.10) 우리는 주(主) 영들의 창조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활동을 거의 알지 못한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무한한 영의 직접적 활동에 의해 실존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들의 기원에 참여하였다고 분명하게 배워 왔다.

16:0.11 (184.11) 영 성격과 본성에서, 파라다이스의 이들 일곱 영들은 하나처럼 있지만, 다른 모든 정체성의 측면들에서 보면 그들은 매우 다르며, 초우주들 안에서의 그들 기능의 결과들은 각자의 개별 차이점들이 뚜렷이 식별될 정도이다. 대우주의 일곱 부분들의 차후계획들은—그리고 외부 공간의 상관되는 구획들까지도—최극이며 궁극 감독의 이들 일곱 주(主) 영들의 영적-이외의 다양성에 의해 조건을 갖추어왔다.

16:0.12 (184.12) 주(主) 영들은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지만, 현재에 있어서 그들의 당면한 권역은 일곱 초우주들에 대한 중앙

감독이다. 각각의 주(主) 영은 거대한 기세-초점 본부를 유지하는데, 그것은 파라다이스의 가장자리를 서서히 돌고 있고, 언제나 즉각적으로 감독하는 초우주 맞은편에서, 그리고 특유한 힘을 통제하고 분할 에너지를 분배하는 파라다이스 초점에, 장소를 유지한다. 어떤 초우주의 방사 경계선도 감독하는 주(主) 영의 파라다이스 본부에서 실재적으로 모아진다.

제 1 장. 삼원적(三元的) 신(神)에 대한 관계

16:1.1 (185.1) 공동 창조자, 무한한 영은 미(未)분화 신(神)의 삼원적 개인성구현의 완성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삼중 신(神) 개인성구현은 개별적 그리고 연관적 표현의 가능성에서 선천적으로 칠중(七重)이다; 따라서 지능 존재들에 의해 그리고 잠재적으로 영적 존재들에 의해 거주민이 사는 우주들을 창조하려는 그 이후의 계획은,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표현이고, 일곱 주(主) 영들의 개인성구현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우리는 신(神)의 삼중(三重) 개인성구현을 절대 필연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반면, 일곱 주(主) 영들의 출현을 하위절대 필연성으로 보게 되었다.

16:1.2 (185.2)

일곱 주(主) 영들이 삼중(三重) 신(神)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그들은 칠중(七重) 신(神)에 대한 영원한 묘사, 신(神)의 항상-실존하는 세 개인들의 활동적이고 연관을 이루는 기능들이다. 이 일곱 영들에 의해, 그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우주 아버지나 영원한 아들이나 무한한 영이나, 또는 어떤 이원적(二元的) 관계적-연합이든지 그렇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함께 활동할 때, 그들은 제7번 주(主) 영을 통해 기능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만, 삼위일체로서는 아니다. 단독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주(主) 영들은 어떤 그리고 모든 가능한 단독이며 저마다의 그러나 집단적이 아니고 삼위일체도 아닌, 신(神) 기능을 대표한다. 제7번 주(主) 영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기능이 없으며, 이것이 바로 그가 최극존재를 위해 개인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이다.

16:1.3 (185.3)

그러나 일곱 주(主) 영들이 그들의 개인적 힘과 초우주 권한의 개별적 보좌를 비우고 파라다이스 신(神)의 삼원적 현존으로의 공동 행위자 주변에 모이면, 그 때 거기에서 그들은 진화하는 우주들에 대한 그리고 우주들

안에서 나뉘지 않은 신(神)-삼위일체—의 기능적 힘, 지혜와 권한을 집단적으로 대표한다. 신(神)의 시원(始原)적 칠중 표현에 대한 그러한 파라다이스 연합은, 최극위 안에서 그리고 궁극위 안에서 세 영원 신(神)들의 각 속성 그리고 태도 전체를 실재적으로 포용하고, 글자 그대로 둘러싼다. 일곱 주(主) 영들은 모든 실천적 의향들과 목적들에 대하여, 그 때 그리고 거기에서, 주(主)우주 에 대한 그리고 그 안에서의 최극자-궁극자의 기능적 권역을 둘러싼다.

16:1.4 (185.4) 우리가 식별하는 한, 이들 일곱 영은 신(神)의 영원한 세 개인들의 신성한 활동들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절대자의 영원한 세 위상들의 기능하는 현존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한다. 연관되었을 때 주(主) 영들은, 대체로 행동의 유한한 권역으로 생각해도 좋은 범위 안에서의 파라다이스 신(神)들을 대변한다. 그것은 궁극적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이 아닌, 많은 것을 포용한다.

제 2 장. 무한한 영에 대한 관계

16:2.1 (185.5) 계속적으로 숫자가 증가하는 신성한 아들들의 개인들을 통하여 영원한 기원 아들이 계시되는 것과 똑같이, 무한한 영 그리고 신성한 영은 일곱 주(主) 영들 그리고 그들의 연관된 영 집단들의 경로들을 통해 계시된다. 중심들의 중심에서 무한한 영은 접근될 수 있지만, 파라다이스를 달성한 모든 존재들이 그의 개인성 그리고 차별된 현존을 즉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앙우주에 도달한 모든 존재들은 일곱 주(主) 영들 중 하나, 새롭게 도착한 공간 순례자들이 흩어져 나온 그 초우주를 주관하는 존재와 즉각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16:2.2 (186.1) 우주들의 우주에 대하여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오직 그의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할 수 있는 반면, 그와 아들은 무한한 영을 통해서만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다.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밖에서는 무한한 영은 오직 일곱 주(主) 영의 음성들로만 말씀한다.

16:2.3 (186.2) 무한한 영은 파라다이스-하보나 체계의 한계 안에서 개인적 현존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다른 곳에서는 그의 개인적 영 현존이 일곱 주(主) 영들 중 하나에 의해

그리고 그를 통해 발휘된다. 그러므로 어떤 세계에서든지 또는 어떤 개별존재에 있어서든지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초우주 영 현존은, 그 창조 부분의 감독하는 주(主) 영의 독특한 본성에 의해 조건을 갖춘다. 역으로 말해서, 영 기세와 지능의 병합된 계통들은 일곱 주(主) 영들의 길을 따라 신(神)의 셋째 개인을 향해 안으로 지나간다.

16:2.4 (186.3) 일곱 주(主) 영들은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최극-궁극자 속성들을 집단적으로 자질로서 부여 된다. 각자가 이 자질을 개별적으로 갖는 반면, 그들은 오직 집단적으로만 전능, 전지, 그리고 전재(全在)의 속성들을 나타낸다. 그들 중 어느 하나가 우주적으로 그렇게 기능할 수 없다; 개별적으로 그리고 최극위와 궁극위의 이들 힘을 발휘함에서 각자는 즉각적 감독의 초우주에 개인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16:2.5 (186.4) 공동 행위자의 신성과 개인성에 관하여 너희에게 지금까지 이야기된 모든 것은 일곱 주(主) 영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적용되는데, 그들은 그들의 신성한 자질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서로 다르고 개별적으로 독특한 본성들로 대우주의 일곱 분할들에

무한한 영을 매우 효과적으로 분배한다. 그러므로 무한한 영의 어떤 또는 모든 이름들은 집합적인 일곱으로의 집단에 적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집합적으로 볼 때 그들은 모든 하위-절대 차원들에서 공동 행위자와 하나이다.

제 3 장. 주(主) 영들의 정체성과 다양성

^{16:3.1 (186.5)} 일곱 주(主) 영들은 설명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들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개인적이다. 그들은 이름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번호에 의해 그들을 소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무한한 영의 1차 개인성구현이라는 점에서는, 그들이 동족이지만, 삼원적 신(神)의 일곱 가지 가능한 관계적-연합들에 대한 1차 표현들에 있어서는, 그들이 본성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양하고, 본성에서의 이 다양성은 초우주 행위성에 관한 그들의 차이점을 결정한다. 이 일곱 주(主) 영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16:3.2 (186.6)} 1번 주(主) 영. 특별한 의미에서, 이 영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직접적인 대표자이다. 그는 우주 아버지의 힘과 사랑과 지혜에 대한 독특하고도 효과적인

현시활동이다. 그는, 신성별에 있는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의 대학을 관장하는 존재인, 신비 감시자들의 우두머리에게 가까운 연관-동료이고 훌륭한 충고자이다. 일곱 주(主) 영들의 모든 관계적-연합에서, 우주 아버지를 대변하는 것은 언제나 1번 주(主) 영이다.

16:3.3 (186.7) 이 영은 첫 번째 초우주를 지배하며, 동시에 무한한 영의 1차 개인성구현의 신성한 본성을 확실하게 나타내는데, 무엇보다도 성격에 있어서 우주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첫 번째 초우주의 본부에서 일곱 반영 영들과 항상 개인적 연락을 이룬다.

16:3.4 (187.1) 2번 주(主) 영. 이 영은 영원한 아들, 모든 창조 중 첫-태생의 비길 데 없는 본성과 매력적인 성격을 적절하게 묘사한다. 하느님의 아들들이 우연히 거주 우주에서 개별존재들로서 있게 되거나 기쁨이 넘치는 비밀회의에 참여하게 되는 어떤 경우든지 그는 그들의 모든 계층들과 항상 긴밀하게 관계적-연합한다. 일곱 주(主) 영들의 모든 관계적-연합들 안에서 그는 항상 영원한 아들을 대변하고 대신한다.

16:3.5 (187.2) 이 영은 2번 초우주의 운명들을 지도하고 영원한 아들이 그러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광대한 권역을 통치한다. 그는 두 번째 초우주의 수도에 위치한 일곱 반영 영들과 항상 연락을 이룬다.

16:3.6 (187.3) 3번 주(主) 영. 이 영(靈) 개인성은 무한한 영을 특별하게 닮았으며, 그는 무한한 영의 높은 개인성들 중 대부분의 움직임들과 활동들을 지도한다. 그는 그들의 모임들을 주재하고, 셋째근원이며 중심 안에서 배타적으로 기원되는 모든 개인성들과 긴밀하게 연관한다. 일곱 주(主) 영들이 회의에 참여할 때, 무한한 영을 항상 대변하는 것은 3번 주(主) 영이다.

16:3.7 (187.4) 이 영은 3번 초우주를 책임지며, 그는 무한한 영이 그러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생긴 관련사들을 관리-운영한다. 그는 세 번째 초우주의 본부에서 반영 영들과 항상 연락을 이룬다.

16:3.8 (187.5) 4번 주(主) 영. 아버지와 아들의 병합된 본성들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주(主) 영은 일곱 주(主) 영들의 회의에서 아버지-아들 정책과 과정에 관한 결정적인 영향력이다. 이 영은 무한한 영에 이미 도달한 그리하여

아들과 아버지를 볼 수 있는 후보자가 된 그 상승하는 존재들에 대한 우두머리 지도자 그리고 충고자이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에서 기원되는 개인성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집단을 돌본다. 일곱 주(主) 영들의 관계적-연합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대표할 필요가 있게 될 때, 대변하는 이는 항상 4번 주(主) 영이다.

16:3.9 (187.6) 이 영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속성들의, 그의 독특한 관계적-연합에 따라서 대우주의 네 번째 부분을 돌본다. 그는 네 번째 초우주의 본부의 반영 영들과 항상 개인적 연락을 이룬다.

16:3.10 (187.7) 5번 주(主) 영. 우주 아버지와 무한한 영의 성격을 절묘하게 혼합하는 이 신성한 개인성은 힘 지도자들, 힘 중심들, 그리고 물리통제자들로 알려진 존재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집단에 대한 충고자이다. 이 영은 또한 아버지와 공동 행위자 안에서 기원되는 모든 개인성들을 돌본다. 일곱 주(主) 영들의 회의들에서, 아버지-영 태도에 질문이 있으면, 5번 주(主) 영이 항상 대변한다.

16:3.11 (187.8) 이 영은 우주 아버지와 무한한 영의 병합된 행위를 의미하는 듯한 그러한 방법으로 다섯 번째 초우주의

복지를 지도한다. 그는 다섯 번째 초우주의 본부에서 반영 영들과 항상 연락을 이룬다.

16:3.12 (187.9) 6번 주(主) 영. 이 신성한 존재는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병합된 성격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들과 영이 공동으로 창조한 창조체들이 중앙우주에서 만날 때에는 언제든지, 이 주(主) 영이 그들의 총고자이다; 일곱 주(主) 영들의 회의에서,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을 대신하여 공동으로 대변할 필요가 있을 때 언제든지, 6번 주(主) 영이 대답한다.

16:3.13 (188.1) 이 영은 마치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이 그러하듯이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초우주의 생긴 관련사들을 지도한다. 그는 여섯 번째 초우주의 본부에서 반영 영과 항상 연락을 이룬다.

16:3.14 (188.2) 7번 주(主) 영. 일곱 번째 초우주를 주관하는 영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의 독특하게 동등한 초상이다. 모든 삼원(三元)-기원 존재들을 돌보는 총고자인, 일곱 번째 영은 또한 모든 하보나의 상승하는 순례자들, 아버지, 아들과 영의 병합된 사명활동을 통하여

영광의 법정에 도달한 저들 낮은 존재들의 지도자이며
충고자이기도 하다.

16:3.15 (188.3) 일곱 번째 주(主) 영이 조직 면에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
그리고 영적 본성이 세 무한 개인들의, 그들의 신(神)
연합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이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기능이 최극자 하느님의 개인적이며 영적 본성의 근원인,
동등한 비율에서의 공동 행위자의 초상이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일곱 번째 주(主) 영은 진화하는
최극자의 영 개인과의 개인적 그리고 조직적 관계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높은 곳의 주(主) 영 회의에서, 아버지,
아들, 영의 병합된 개인적 태도에 대해 투표를 해야 하거나,
또는 최극존재의 영적 태도를 묘사할 필요가 있을 때,
기능하는 분이 7번 주(主) 영이다. 그리하여 선천적으로
그는 일곱 주(主) 영의 파라다이스 협의회를 주관하는
의장이 된다.

16:3.16 (188.4) 일곱 주(主) 영들 중 어느 누구도 조직상으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칠중 신(神)으로 연합할 때에는, 신(神) 감각—개인적

감각이 아닌—에서 이 연합은, 삼위일체 기능과 연관할 수 있는 기능차원과 동등하다. 이러한 감각에서 “칠중 영”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 기능적으로 연관할 수 있다. 7번 주(主) 영이 때때로 삼위일체 태도들의 확인으로 말하거나, 혹은 오히려 삼중-신(神)-연합의 태도,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태도에 관한 칠중-영(靈)-연합의 태도에 대한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것 역시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16:3.17 (188.5) 일곱 번째 주(主) 영의 다양한 기능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개인적 본성들에 대한 병합된 묘사로부터 최극자 하느님의 개인적 태도의 대표를 거쳐,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신(神) 태도를 나타내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다양하다. 그리고 지배하는 이 영은 어떤 면에서 궁극자와 최극-궁극자의 태도들을 비슷하게 표현한다.

16:3.18 (188.6) 그의 여러 수용력에서, 나뉘지 않은 최극위 신(神)의 이해를 성취하려는 그들의 시도에 있는 시간 세계들로부터 상승하는 후보자들의 진보를 직접적으로 후원하는 이는 바로 7번 주(主) 영이다. 그러한 이해는, 최극위 합일에 대한 창조체 파악을 이루기까지

최극존재의 성장하는 체험적 주권 개념과 것처럼 조화-협동하는, 최극위 삼위일체의 실존적 주권에 대한 파악을 포함한다. 이들 세 요소의 창조체 실현은 삼위일체 실체의 하보나 이해와 동등하며 그리고 시간의 순례자에게, 신(神)의 세 무한(無限) 개인들을 발견하려고 결국에는 삼위일체에 스며드는, 능력을 자질로서 부여한다.

16:3.19 (188.7) 하보나 순례자들이 최극자 하느님을 충분하게 발견하지 못하는 무능력은 일곱 번째 주(主) 영, 그의 삼원적 본성이 그러한 특유한 방법에서 최극자의 영 개인의 계시인, 그에 의해 보상된다. 최극자의 개인에 접촉할 수 없는 현재의 우주 시대 동안, 7번 주(主) 영은 개인적 관계들에 있어서 상승하는 창조체들의 하느님을 대신하여 기능한다. 그는 모든 상승자들이, 영광의 중심에 그들이 도달할 때 분명하게 깨닫고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는 하나의 높은 영 존재이다.

16:3.20 (189.1) 이 주(主) 영은, 창조에서 우리 자신이 속한 구역인, 일곱 번째 초우주의 본부인, 유버사의 반영 영들과 항상 연락을 이룬다. 오르본톤에 대한 그의 관리-행정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신성한 본성들의 조화-협동하는 혼합의 경이로운 대칭을 나타낸다.

제 4 장. 주(主) 영들의 속성들과 기능들

16:4.1 (189.2) 일곱 주(主) 영들은 진화적 우주들에 대한 무한한 영의 총만한 대표이다. 그들은 에너지와 마음과 영의 관계에서 셋째근원이며 중심을 대표한다. 그들이 공동 행위자의 우주 행정-관리적 통제의 조화-협동하는 우두머리들로서 기능하는 반면,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창조적 활동들에 그들의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일곱 영들이 삼원적 신(神)의 개인성구현된 물리적 힘, 조화우주 마음, 그리고 영적 현존이며, “모든 우주에 보내지는 하느님의 일곱 영들”인 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다.

16:4.2 (189.3) 주(主) 영들은 그들이 절대를 제외하고는. 실체의 모든 우주 차원들 위에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초우주 활동들의 모든 차원들에서 발생하는 행정-관리적 관련사들의 모든 위상들에 대한 효과적이고도 완전한 감독자들이다. 필사자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주(主) 영들에 관한 매우 많은 것이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들의 활동이 모든 것을-포함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높게 전문화되어 있고, 너무나 예외적으로 물질적이며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 지극하게 영적이기 때문이다. 조화우주 마음의 이 다재다능한 창조자들은 우주 힘 지도자들의 조상들이며, 그들 자신은 광대하고도 멀리-퍼지는 영-창조체 창조의 최극 지도자들이다.

16:4.3 (189.4) 일곱 주(主) 영들은, 대우주의 물리적 에너지들의 조직, 통제, 그리고 규정에 필수 불가결한 실존개체들인 우주 힘 지도자들 그리고 그 연관-동료들의 창조자들이다. 그리고 바로 그 주(主) 영들이 지역우주들을 형성하고 조직하는 일에서 창조자 아들들을 매우 물질적으로 보조한다.

16:4.4 (189.5) 우리는 주(主) 영들의 조화우주-에너지 활동과 분별불가 절대자의 기세 기능들 사이에서 어떤 개인적 관계도 추적할 능력이 없다. 주(主) 영들의 권한 아래에 있는 에너지 현시활동들은 모두 파라다이스의 가장자리로부터 지도를 받는다; 그들은 파라다이스의 하부 표면으로 정체성 확인되는 기세현상들과 연관된 어떤 직접적 방법인 것처럼 나타나지는 않는다.

16:4.5 (189.6)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가 다양한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의 기능적 활동들에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주(主) 영들의 계시되지 않은 활동들 중 어떤 것과 대면하게 된다. 물리통제자들과 영 사명활동자 둘 모두의 조상인 이들을 제외하고, 누가 지금까지 실존하지 않은 우주실체의 위상—모론시아 본체와 모론시아 마음—을 생기게 하려고 물질적 그리고 영적 에너지들을 병합되고 연관하는 데 그토록 기여할 수 있었겠는가?

16:4.6 (189.7) 영적 세계에서의 실체의 많은 것이 모론시아 계층, 유란시아에 전혀 알려지지 않는 우주 실체의 위상에 속한다. 개인성 실존의 목표는 영적인 것이다, 그러나 모론시아 창조계가 항상 사이에 개재하며, 필사자 기원인 물질적 영역들과 전진하는 영 지위인 초우주 구체들 사이의 심연에 다리를 놓는다. 주(主) 영들이 사람의 파라다이스 상승 계획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영역에서이다.

16:4.7 (190.1) 일곱 주(主) 영들은 대우주에 두루 기능하는 개인적 대표들이다; 그러나 이들 권속 존재들 중 거의 대부분이 파라다이스 완전의 경로에서 필사자 진보의

상승체계와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관하여는 거의 또는 전혀 계시되지 않았다. 일곱 주(主) 영들의 활동 중 많은, 매우 많은 부분은 인간이 납득하지 못하도록 숨겨져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이 파라다이스 상승에 대한 너희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16:4.8 (190.2) 우리가 분명한 증명을 제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본톤의 주(主) 영이 다음과 같은 활동 구체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16:4.9 (190.3) 1. 지역우주 생명운반자들의 생명-창시(創始)과정.

16:4.10 (190.4) 2. 지역우주 창조 영에 의해 그 세계들에게 증여된 보조 마음-영들의 생명 활성화.

16:4.11 (190.5) 3. 직선적-중력-반응하는 조직된 물질단위들에 의해 드러나는 에너지 현시활동에서의 동요.

16:4.12 (190.6) 4. 분별불가 절대자의 장악에서 충분히 해방될 때, 그래서 직선중력의 직접적 영향에 대해 그리고 우주 힘

지도자들 및 그들 연관-동료들의 조종에 응답하게 되는,
창발에너지의 행동.

16:4.13 (190.7) 5. 유란시아에 성령으로 알려진, 지역우주 창조
영의 사명활동 영의 증여.

16:4.14 (190.8) 6. 유란시아에서 위로자 또는 진리의 영이라고
불리는, 증여 아들들의 영의 그 이후의 증여.

16:4.15 (190.9) 7. 지역우주들과 초우주의 반영성 기능구조. 이
비범한 현상과 관련된 많은 특성들은 공동 행위자 그리고
최극존재와 관계적-연합된 주(主) 영들의 활동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합리적으로 설명되거나 이성적으로
납득되기가 매우 어렵다.

16:4.16 (190.10) 일곱 주(主) 영들의 각가지 작업들을 적절하게
이해하는데 우리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주
활동들의 광대한 범위에서 그들이 아무 상관없는 두
영역들이 있다고 확신한다: 이는 생각 조절자들의 증여와
사명활동 그리고 분별불가 절대자의 불가해한
기능들이다.

제 5 장. 창조체들에 대한 관계

16:5.1 (190.1) 대우주의 각 부분, 각 개별 우주와 세계는, 모든 일곱 주(主) 영들의 연합된 조언과 지혜의 혜택을 누리지만 단지 한 분의 개인적 손길과 색조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각 주(主) 영의 개인적 본성은 그의 초우주 전체에 가득 퍼지고 그리고 독특하게 조건을 갖춘다.

16:5.2 (190.1) 일곱 주(主) 영들의 이 개인적 영향을 통하여,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밖에 있는 지능 존재들의 모든 계층의 각 창조체는 이들 일곱 파라다이스 영들 중 어떤 하나의 선재(先在) 본성을 나타내는 개별존재성의 특징적 표식을 반드시 지녀야만 한다. 일곱 초우주들을 고려할 때, 각각의 원주민 창조체, 사람 또는 천사(天使)는 출생적 정체화구현의 이 표지를 언제까지나 지닐 것이다.

16:5.3 (191.1) 일곱 주(主) 영들은 우주의 진화적 세계들에서 개별 창조체들의 물질적 마음들에 직접적으로 파고들지 않는다.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은 오르본톤의 주(主) 영의 마음-영 영향의 개인적 현존을 체험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주(主) 영이 한 거주민이 사는 세계의 비교적 초기 진화시기에 개별 필사자 마음과 어떤 식으로든 접촉을 달성한다면, 그것은 각 지역 창조의 운명들을 주관하는,

하느님의 창조자 아들의 배우자이자 연관-동료인, 그 지역우주 창조 영의 사명활동을 통해서만 발생한다. 그러나 바로 이 창조 어머니 영은, 본성과 성격에 있어서 오르본톤의 그 주(主) 영과 매우 비슷하다.

16:5.4 (191.2) 주(主) 영의 물리적 표식은 사람의 물질적 기원의 일부분이다. 모론시아 생애 전체는 동일한 이 주(主) 영의 계속되는 영향력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그러한 상승하는 필사자가 이 동일한 감독하는 영의 특징적 표식을 결코 충분히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은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주(主) 영의 날인은 필사자 상승의 모든 하보나-이전(以前) 단계의 바로 그 실존에 기본적이다.

16:5.5 (191.3) 뚜렷한 개인성 경향들이 진화적 필사자들의 일생 체험에서 전시되는 데, 그것들은 각각의 초우주에 있는 특징이며, 그리고 지배하고 있는 주(主) 영의 본성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다, 이 개인성 경향들은 그러한 상승자들이 10억 개의 하보나 교육 구체들에서 만나는 긴 훈련과 통합시키는 단련에 따르게 된 이후라 하더라도 결코 충분히 지워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그 이후의 강력한 파라다이스 문화도 초우주 기원의 표시를 뿌리째

뽑아내지 못한다. 영원에 두루, 상승하는 필사자는 그가 탄생된 초우주를 지배하는 영을 표시하는 특색들을 나타낼 것이다. 심지어는 최종의 무리단 안에서도, 진화적 창조에 대한 완벽한 삼위일체 관계에 도달하거나 그것을 묘사하도록 요구될 때, 각 초우주로부터 한 명씩, 일곱 최종자로 이루어진 집단이 항상 이루어진다.

제 6 장. 조화우주 마음

16:6.1 (191.4) 주(主) 영들은 대우주의 지적 잠재, 조화우주 마음의 칠중 근원이다. 이 조화우주 마음은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마음에 대한 하위-절대적 현시활동이며, 어떤 면에서는 진화하는 최극존재의 마음에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16:6.2 (191.5) 유란시아와 같은 세계에서, 우리는 인간 종족들의 관련사들에서 일곱 주(主) 영들의 직접적 영향력을 마주치지 않는다. 너희는 네바돈의 창조 영의 즉각적 영향 아래에서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일한 주(主) 영들이 모든 창조체 마음의 기본 반응들을 지배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에 거주하는, 저들 개별존재들의 일생 안에서 기능하도록 지역우주들

안에 특화되어온 지적 그리고 영적 잠재들의 실재적 근원이기 때문이다.

16:6.3 (191.6) 조화우주적 마음이 있다는 그 사실이 인간 그리고 초(超)인간 마음들의 다양한 유형들의 친족관계를 설명한다. 유사(類似) 영들이 서로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유사 마음들 역시 매우 우애적이고 서로간의 협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인간 마음들은 때로 놀라운 유사성과 설명할 수 없는 공감의 경로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16:6.4 (191.7) 조화우주적 마음의 전체 개인성 관계적-연합들 안에는 "실체 응답"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본질특성이 존재한다. 과학, 철학 그리고 종교의 선험적 가정(假定)에 내포된 것에서의 어떤 도움도 없는 희생자들이 되어가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주는 것은 의지 창조체들의 이 우주적인 조화우주 부여-자질이다. 조화우주 마음의 이 실체 감수성은, 에너지-물질이 중력에 응답하는 것과 똑같이, 실체의 일정 위상들에 응답한다. 이들 초물질 실체들이 조화우주의 마음에 그렇게 응답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

16:6.5 (192.1) 조화우주적 마음은 우주 실체의 세 차원에서 반드시 응답한다(응답을 인식한다). 이 응답들은 분명하게-추론하는 그리고 깊이-사색하는 마음들에게 자아-명백하다. 이들 실체의 차원은 다음과 같다:

16:6.6 (192.2) 1. 원인—물리적 감각의 실체 권역, 논리적 획일성의 과학적 영역, 사실적인 것과 비(非)사실적인 것의 구분, 조화우주적 응답에 근거한 반영적인 결론. 이것은 조화우주적 분간의 수학적 형태이다.

16:6.7 (192.3) 2. 의무—철학적 영역에서의 도덕의 실체 권역, 이성의 경기장, 상대적인 옳고 그름됨에 대한 인식. 이것은 조화우주적 분간의 사법적 형태이다.

16:6.8 (192.4) 3. 경배—종교적 체험에서의 실체의 영적 권역, 신성한 동료관계의 개인적 실현, 영 가치들에 대한 인식, 영원한 생존에 대한 확신, 하느님의 하인 지위로부터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기쁨과 해방으로의 상승. 이것은 조화우주적 마음의 가장 높은 통찰력, 조화우주적 차별성구현에 대한 존경하는 그리고 경배심이 넘치는 형태이다.

16:6.9 (192.5) 이들 과학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 통찰력, 이들 조화우주 응답들은 조화우주 마음 안에 타고난 것이며, 이 조화우주 마음은 모든 의지 창조체들에게 자질로서 부여된다. 삶의 체험은 이들 세 조화우주 직관을 개발하지 못할 수는 결코 없다; 이는 그들이 반영적 사고(思考)의 자아-의식을 이루는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기 있는 그리고 독자적인 조화우주 사고(思考)의 본질특성들을 경작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갖는 사람이 유란시아에서는 거의 없다고 기록하자니 슬프다.

16:6.10 (192.6) 지역우주 마음 증여에서, 조화우주 마음의 이들 세 가지 통찰력은, 사람으로 하여금 과학과 철학 그리고 종교의 영역에서 이성적이고 그리고 자아-의식적인 개인성으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어떤 선험적 가정들을 구성한다. 달리 말하자면, 무한자의 이들 세 현시활동의 실체를 인지하는 것은, 자아-계시의 조화우주적 기법에 의해서이다. 물질-에너지는 감각의 수학적 논리에 의해 인지된다; 마음-이성은 그것의 도덕적 의무를 직관적으로 안다; 영-신앙(경배)은 영적 체험의 실체에 대한 종교이다. 반영적 사고(思考) 안에서 이들 세 기본 요소들은 개인성 개발에서 통합되고 조화-협동될

수도 있고, 또는 그들은 균형을 잃게 되어서 그들의 해당 기능에서 실질적으로 무관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통합될 때, 그들은 사실적 과학, 도덕적 철학, 그리고 진정한 종교적 체험의 상호관련 안에 이루어지는 강력한 성격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사물, 의미, 가치들로 겪는 그리고 그 안에서 겪는 사람의 체험에 객관적인 타당성, 실체성을 주는 것이 바로 이들 세 조화우주 직관들이다.

16:6.11 (192.7) 인간 마음의 이들 타고난 자질들을 개발하고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문명의 목적이다; 그것들을 실현하는 것이 일생 체험의 목적이다; 그것들을 고결하게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다; 그것들을 통합하는 것이 개인성의 목적이다.

제 7 장. 도덕, 덕목, 그리고 개인성

16:7.1 (192.8) 지능만으로는 도덕적 본성을 설명할 수 없다. 도덕과 덕목은 인간 개인성에 토착적인 것이다. 도덕적 직관, 의무의 실현은 인간 마음 자질의 한 요소이며 인간 본성의 양도할 수 없는 다른 것들: 과학적 호기심과 영적

통찰력과 연관되어 있다. 사람의 정신은 그의 동물 친족들의 그것을 훨씬 초월하지만, 인간을 동물 세계로부터 특별하게 구별시키는 것은 그의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본성들이다.

16:7.2 (193.1) 동물의 선택하는 응답은 습성이라는 운동 차원에 제한되어 있다. 비교적 고등 동물들의 통찰력처럼 보이는 것들은 운동 차원에 있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운동에서의 체험 이후에서 단순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은 모든 탐구 또는 실험보다 그 이전에 과학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다.

16:7.3 (193.2) 오로지 개인성만이 그 어떤 것이 행해지기 전에 무엇이 이루어질지를 알 수 있다; 오직 개인성들만이 체험 이전에 통찰력을 갖는다. 개인성은 그것을 움직이기 이전에 알 수 있으며 그러므로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살펴야 하는 것으로서도 배울 수 있다. 비(非)개인적 동물은 보통 움직임으로만 배운다.

16:7.4 (193.3) 체험의 결과로서, 동물은 한 목표를 달성하는 다른 방법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고 누적된 체험에 기초된 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성은 그 목표 자체를

실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보람된-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지능 혼자서는 분간되지 않는 결말들에 도달하는 최선의 수단들을 분간해 낼 수 있지만, 도덕적 존재는 그로 하여금 결말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수단들 사이에서도 분간할 수 있게 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존재는 덕목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지능적이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것인지를 안다.

16:7.5 (193.4) 사람이 그가 필사자로서 분투하고 있는 것의 결말을 분간하지 못할 때, 그는 스스로 자신이 실존에서의 동물적 차원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개인적 존재로서의 그의 조화우주-마음 자질의 집대성을 이루는 한 부분인 물질적 총명, 도덕적 분간, 그리고 영적 통찰력이라는 우월한 장점들을 자신이 활용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16:7.6 (193.5) 덕목은 정의(正義)-조화우주와의 일치—이다. 덕목이라 이름 붙이는 것이 그것들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들을 아는

것이다. 덕목은 단순한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며, 오히려 조화우주 성취의 상승 차원 달성에 있는 진보적 체험의 실체이다. 필사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악보다 선을 계속 선택함으로써 덕목은 실현되며, 그러한 선택 능력은 도덕적 본성의 소유에 대한 증거이다.

16:7.7 (193.6) 선과 악 사이의 사람의 선택은 자신의 도덕적 본성의 예민함 뿐만 아니라 무지와 미성숙과 망상과 같은 그러한 영향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비례에서의 감각 또한 덕목의 실천에 관여되는데, 왜냐하면 왜곡이나 기만의 결과로서 더욱 크고 위대한 것 대신에 더욱 작은 것이 선택되었을 때, 악이 저질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 영역에서의 덕목의 실천에는 상대적인 추산이나 또는 비교하는 측정의 기예가 들어간다.

16:7.8 (193.7) 사람의 도덕적 본성은 측정하는 기술, 의미들을 세밀히 헤아리는 그의 능력을 체현하는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도덕적 선택은 영적 가치들의 의식을 가져오는 조화우주 통찰력 없이는 아무 쓸모없을 것이다. 지능의 입장에서는, 사람은 그가

개인성을 자질로서 부여받기 때문에 도덕적 존재의 차원으로 상승한다.

16:7.9 (193.8) 도덕은 결코 법이나 강제로 향상될 수 없다. 그것은 개인적 그리고 자유의지의 문제이며 그리고 도덕적으로 향기로운 개인들과 도덕적으로 비교적 덜 응답하는 자들, 그러나 또한 어느 정도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자들과 접촉에서의 감화로서 확산되어야만 한다.

16:7.10 (193.9) 도덕적 행동들은, 우월한 최종들의 선택에서 또한 동시에 이 최종을 달성하는 도덕적 수단들의 선택에서, 선택하는 분별력에 의해 지도되고, 가장 높은 지능으로 특징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인간 행위이다. 그러한 행위성은 고결하다. 최극 덕목은, 그리하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전심을 다하여 택한다.

제 8 장. 유란시아 개인성

16:8.1 (194.1) 수많은 계층의 개인성들이 우주 실재성의 다양한 차원에서 기능하듯이 우주 아버지는 그들에게 개인성을 증여한다. 유란시아 인간 존재들은 하느님의 상승하는 아들들의 차원에서 기능하는, 유한-필사 유형의 개인성을 자질로서 부여받았다.

16:8.2 (194.2) 우리가 개인성을 정의(定意)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더라도, 우주 아버지가 자신의 증여된 개인성이 그 속에서 그리고 그 위에서 그리고 그와 함께 기능하도록 기능구조를 구성하는 상호-연관인 물질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에너지들의 전체총화를 이루게 하는 알려진 요소들에 대한 우리의 납득을 설명하는 시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16:8.3 (194.3) 개인성은 그 실존이 생각 조절자의 증여와는 독립적이고 그것보다 앞서서, 기원적 본성을 갖는 독특한 자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자의 현존은 개인성의 질적 현시활동을 증강시킨다. 생각 조절자들은,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아올 때,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개인성은 다양하고 기원적이고 배타적이다; 개인성의 현시활동은, 개인성 현시활동을 위한 유기적 매체를 구성하는 물질적, 마음적, 그리고 영적 본성을 갖는 연관된 에너지들의 본성과 본질특성들에 의해 한층 더 조건을 갖추고 그리고 분별화된다.

16:8.4 (194.4) 개인성들은 비슷할 수 있지만 결코 같지 않다. 주어진 계열, 유형, 계층, 또는 원형틀을 갖는 개인들은

서로 닮을 수 있고 또 그러하지만, 그들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개인성은 우리가 아는 한 개별존재의 그 모습이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한 존재가 언젠가 미래 시간에 형태, 마음, 또는 영 상태에서 변화하는 본성과 범위에 상관없이 정체성을 확인하게 한다. 개인성은 그의 개인성의 표현과 현시활동인 매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가 얼마나 바뀌어 올 수 있었던가에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전에 우리가 알아 왔던 자로 그 개인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정체성을 확인하게 만드는 한 개별존재의 바로 그 부분이다.

16:8.5 (194.5) 창조체 개인성은, 자아-현시와 필사자 반응 습성의 특징적 현상인 두 가지: 즉, 자아-의식 그리고 연관된 상대적 자유의지에 의해 구별된다.

16:8.6 (194.6) 자아-의식은 개인성 실재성에 대한 지적 깨달음에 있다; 그것은 다른 개인성들의 실체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그것은 조화우주 실체들 안에서 그리고 함께하는 개별존재화된 체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며, 우주의 개인성 관계들 안에서의 정체성 지위의 달성에 상당한다. 자아-의식은 마음 봉사사명의 실재성의

인식과 창조적 그리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의지의 상대적 독립이 실현되었음을 암시한다.

16:8.7 (194.7) 인간 개인성의 자아-의식을 특징짓는 상대적 자유의지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관여된다:

16:8.8 (194.8) 1. 도덕적 결정, 가장 높은 지혜.

16:8.9 (194.9) 2. 영적 선택, 진리 식별.

16:8.10 (194.10) 3. 사심 없는 사랑, 형제신분의 봉사.

16:8.11 (194.11) 4. 목적이 있는 협동, 집단 충성심.

16:8.12 (194.12) 5. 조화우주 통찰력, 우주 의미들의 파악.

16:8.13 (194.13) 6. 개인성 전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전심으로 전념함.

16:8.14 (195.1) 7. 경배, 신성한 가치들에 대한 진지한 추구와 신성한 가치-증여자에 대한 전심으로의 사랑.

16:8.15 (195.2) 인간 개인성의 유란시아 유형은 생명 활성화의 전기화학적 계층에 속하는 그리고 부모에 의해 재생산되는 원형틀을 갖는 조화우주 마음의 오르본톤

계열들의 네바돈 계층으로 자질로서 부여 받은, 네바돈 유기체 유형의 행성에서 변경을 이루는 물리적 기능구조 안에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아도 된다. 그러한 마음-자질로서 부여된 필사자 기능구조에 개인성이라는 신성한 선물의 증여는, 조화우주 시민신분이라는 존엄성을 수여하며 그러한 필사 창조체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조화우주의 기본적인 세 마음 실체들에 대한 구조적 인식에 즉시 반응하게 되도록 만든다:

16:8.16 (195.3) 1. 물리적 원인성에 대한 획일성에서의 수학적 또는 논리적 인식.

16:8.17 (195.4) 2. 도덕적 행위성에 대한 책무를 이성으로 인식.

16:8.18 (195.5) 3. 인간성의 사랑하는 봉사와 연관되어진, 신(神)에 대한 동료관계에서의 경배를 신앙으로-파악.

16:8.19 (195.6) 그러한 어떤 개인성 자질의 총만한 기능은 신(神) 친족관계가 시작되는 실현이다. 아버지 하느님의 전(前)개인적 단편이 내주하는, 그러한 자아신분은 정말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하느님의 영적 아들이다. 그러한 창조체는 신성한 현존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수용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성들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개인성-중력 순환회로에 대한 반응적 응답을 나타내기도 한다.

제 9 장. 인간 의식의 실체

16:9.1 (195.7) 조화우주-마음이-자질로서 부여된, 조절자가-내주하는, 개인적 창조체는 에너지 실체, 마음 실체 그리고 영 실체에 대한 타고난 인식-실현을 지닌다. 의지 창조체는 사실과 법과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식별하는 능력을 그렇게 갖추고 있다. 양도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인간 의식 이외에, 모든 인간 체험은, 조화우주 인식의 이들 세 우주 실체 응답들의 통일에 유효성의 직관적 실현이 덧붙는다는 것을 제외하면, 실제로 주관적이다.

16:9.2 (195.8) 하느님을-식별하는 필사자는 생존하는 혼의 진화에서 이들 세 가지 조화우주 본질특성들의 통일 가치를 인식할 수 있으며, 그것은 불멸의 혼을 복제하기 위하여 내주하는 신성한 영과 협력하여 도덕적 마음이 일하는 물리적 장막 안에서의 사람의 최극 사업이다. 초기의 시작부터 그 혼은 실제적이다; 그것은 조화우주 생존 본질특성들을 갖고 있다.

16:9.3 (195.9)

만약에 필사 사람이 자연적 죽음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그 인간 체험의 실제 영적 가치들은 생각 조절자의 이어지는 체험의 일부분으로 생존한다. 그러한 살아남지 못하는 존재의 개인성 가치들은 실재화하는 최극존재의 개인성 안에서 하나의 요소로 잔존한다. 잔존하는 그러한 개인성의 본질특성들은 정체성은 빼앗겼지만 육신에서의 필사 삶 동안에 누적된 체험적 가치들은 그렇지 않다. 정체성의 생존은 모론시아 지위의 불멸의 혼의 생존과 증가하는 신성한 가치에 달려있다. 개인성 정체성은 그 혼의 생존 안에서 그리고 그에 의해서 생존한다.

16:9.4 (195.10)

인간의 자아-의식은, 의식적인 자아가 결코 아니고 자아들의 실체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그러한 자각이 상호적임을 의미한다; 즉 아는 것만큼 알려지는 것이 자아이다. 이것은 사람의 사회생활에서는 순전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안에서 사는 하느님의 현존의 실체에 대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절대적으로 동료 존재의 실체에 대해 확신되어갈 수는 없다. 사회적 의식이 하느님-의식과 같이 양도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문화적으로 개발되는 것이며 지식, 표상, 그리고 사람의

구성 자질—과학, 도덕 그리고 종교—의 기여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화된 조화우주 선물들이 문명을 이룬다.

16:9.5 (196.1) 문명은 그것들이 조화우주적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그것들은 종족의 개별존재들안에 타고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구성 요소들—과학, 도덕, 그리고 종교—의 병합된 기여에 의해 양육되어야만 한다. 문명들은 왔다가 가지만, 과학과 도덕과 종교는 항상 그 붕괴 속에 생존한다.

16:9.6 (196.2) 예수는 사람에게 하느님을 계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주었다. 예수의 삶에서 너희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본다. 예수가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가득 하느님을 지니고 있었기에 사람은 그렇게 아름답게 실제적 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실현(인식)은 양도될 수 없으며 모든 사람 안에 구성요소로서 들어있다.

16:9.7 (196.3) 어버이의 본능을 제외하고, 사심-없음은 전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개인성들이 자연적으로 사랑 받거나 사회적으로 보살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사심-

없고 이타적인 사회 질서를 만드는 것은 이성, 도덕에 대한 깨우침이 필요하고 그리고 종교에서의 충동, 곧 하느님을-알고-있음을 필요로 한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개인성을 인식하는 것, 자아-의식도 또한, 바로 이 타고난 다른 이를-인식함의 사실, 곧 인간부터 신성에 이르기까지 걸쳐있는 자신과 다른 개인성의 실체를 인지하고 파악하는 이 타고난 능력의, 바로 그 사실에 직접적으로 달려있다.

16:9.8 (196.4) 사심 없는 사회의식은, 바탕이, 종교의식임에 틀림없다; 그것이 객관적인 경우에 그렇다. 아니라면, 그것은 순전히 주관적인 철학적 추상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 사랑이 빠져있다. 오직 하느님을-아는 개별존재만이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16:9.9 (196.5) 자아-의식은 본질적으로, 하느님과 사람, 아버지와 아들, 창조자와 창조체. 공동체 의식(意識)이다: 인간의 자아-의식에는 네 가지 우주-실체 실현들이 숨어 있고 선천적이다:

16:9.10 (196.6) 1. 지식의 추구, 과학의 논리.

16:9.11 (196.7) 2. 도덕적 가치의 추구, 의무 감각.

16:9.12 (196.8) 3. 영적 가치의 추구, 종교적 체험.

16:9.13 (196.9) 4. 개인성 가치의 추구, 하느님의 실체를 개인성으로 깨닫는 능력 그리고 동료 개인성들과 우리의 형제우애적 관계를 동시 발생적 실현으로 깨닫는 능력.

16:9.14 (196.10) 너희가 이미 하느님을 너희 창조자 아버지로 의식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창조체 형제로서의 사람에 대해 의식하기 시작한다. 아버지신분은 우리가 우리들을 설득하여 형제신분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관계이다. 그리고 아버지신분은 모든 도덕적 창조체들에게 우주실체가 되거나 될 수 있는데, 이는 아버지 자신이 그러한 모든 존재들에게 개인성으로 증여하였고 우주 개인성 순환회로의 장악 안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느님을 경배하는데, 첫째는 그 분 이시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있기 때문이다.

16:9.15 (196.11) 조화우주 마음이 그 자체의 근원, 무한한 영의 무한 마음을 자아-의식적으로 알아차려야만 하고, 그리고 동시에, 멀리-퍼지는 우주들의 물리적 실체, 영원한 아들의

영적 실체, 그리고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 실체를
의식하여야만 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인가?

16:9.16 (196.12) [유버사로부터 온 우주 검열자에 의해 후원됨]

제 17 편 일곱 최극 영 집단

17:0.1 (197.1) 일곱 최극 영 집단들은 대우주의 일곱-분할된
관리-행정에 대한 우주 조화-협동 지도자들이다. 모두가
무한한 영의 기능적 가족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세 집단들은 대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자녀들로 분류된다:

17:0.2 (197.2) 1. 일곱 주(主) 영.

17:0.3 (197.3) 2. 일곱 최극집행자.

17:0.4 (197.4) 3. 반영 영.

17:0.5 (197.5) 나머지 네 집단들은 무한한 영의 창조활동들 또는
창조지위의 그의 연관-동료들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

17:0.6 (197.6) 1. 반영 영상 도움자.

17:0.7 (197.7) 2. 순환회로의 일곱 영 .

17:0.8 (197.8) 3. 지역우주 창조 영.

17:0.9 (197.9) 4. 보조 마음-영.

17:0.10 (197.10) 이들 일곱 계층들은 유버사에서 일곱 최극 영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기능적 권역은 영원한 섬의 가장자리에 있는 일곱 주(主) 영들의 개인적 현존으로부터, 영의 일곱 파라다이스 위성들과 하보나 순환회로들과 초우주 정부들 그리고 지역우주들의 관리-행정과 감독을 포함하여, 심지어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의 진화하는 마음 영역에 증여되는 보조자들의 낮은 봉사에 이르기까지 미친다.

17:0.11 (197.11) 일곱 주(主) 영들은 멀리-퍼지는 이 영역의 조화-협동하는 지도자들이다. 조직된 물리적 힘, 마음 에너지, 그리고 미(未)개인적 영 사명활동에 대한 행정-관리적 규제에 속하는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그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활동하며, 다른 그 밖에는 그들이 가지각색의 그들의 연관-동료들을 통하여 기능한다. 집행적 본성—통치, 규범, 조절들, 그리고 행정-관리적 결정들—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주(主) 영들은 일곱 최극집행자들의 개인들 안에서 활동한다. 중앙우주에서는

주(主) 영들이 하보나 순환회로 일곱 영을 통하여 기능할 수 있다; 일곱 초우주들의 본부에서는 그들이 반영 영들의 통로를 통하여 자신들을 계시하고, 그들이 반영 영상 도움자들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통신하고 있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개인들을 통하여 활동한다.

17:0.12 (197.12) 일곱 주(主) 영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보다 아래에 있는 우주 관리-행정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 너희 지역우주는 오르본톤의 주(主) 영에 의해 우리 초우주의 일부분으로 관리-운영되지만, 네바돈의 원주민 존재들과 관계되는 그의 기능은 너희 지역우주 본부, 구원자별에 거주하는 창조 어머니 영에 의해 즉각적으로 이행되고 개인적으로 지도된다.

제 1 장. 일곱 최극집행자

17:1.1 (198.1) 주(主) 영들의 집행본부는 무한한 영의 일곱 파라다이스 위성들을 차지하며, 그것들은 영원한 아들의 빛나는 구체들과 가장 안쪽의 하보나 순환회로 사이에서 중앙 섬 주변을 돌고 있다. 이 집행구체들은 최극집행자들의 지도 아래에 있는데, 이들 일곱으로 된 한

집단은, 일곱 주(主) 영들의 우주적 대표자들로서 기능할 수 있는 유형의 존재로서 일곱 주(主) 영의 명세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에 의해 삼위일체화 되었다.

17:1.2 (198.2) 주(主) 영들은 이들 최극집행자를 통하여 초우주 정부들의 다양한 부서들과의 접촉을 유지한다. 일곱 초우주들의 기본적 구성 경향들을 거의 대부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균일하게 그리고 신성하게 완전하지만, 또한 개인성의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그들에게는 주관하는 우두머리가 없다; 그들이 매 번 만날 때마다, 공동회의를 주재하도록 자신들 안에서 한 명을 선출한다. 그들은 일곱 주(主) 영들과 회의를 갖기 위해 파라다이스를 향해 정기적으로 여행한다.

17:1.3 (198.3) 일곱 최극집행자들은 대우주의 행정-관리적 조화-협동자들로써 기능한다; 그들은 하보나-이후 창조의 상임위원회로 부를 수도 있다. 그들은 파라다이스의 내부 관련사들에는 관여하지 않고, 순환회로 일곱 영을 통하여 하보나 활동의 제한된 구체들을 감독한다. 이 밖에는 그들의 감독 범위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 그들은 물리적, 지적, 영적인 것들을 지도하는 일에 종사한다; 일곱

초우주들과 하보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아니 모든 것을 알기까지 한다.

17:1.4 (198.4) 이들 최극집행자들은 정책들을 수립하지도 않고 우주 진행과정들을 변경시키지도 않는다; 그들은 일곱 주(主) 영들에 의해 선포된 신성(神性)의 계획들의 집행에 관여한다. 또한 그들은 초우주에서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통치에 간섭하지도 않으며, 지역우주에서의 창조자 아들들의 주권에도 간섭하지 않는다. 그들은 조화-협동하는 집행자들이며, 그들의 기능은 대우주 안에서 정식으로 수립된 모든 통치자들의 병합된 정책들을 이행하는 것이다.

17:1.5 (198.5) 집행자들 각자와 그의 구체의 시설들은 단일 초우주의 효과적인 관리-행정에 헌납되어 있다. 1번 최극집행자는 1번 집행 구체에서 기능하고, 1번 초우주의 관련사들에 전적으로 몰두하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7번 최극집행자까지 계속되는데, 그는 영의 일곱 번째 파라다이스 위성으로부터 일하면서 일곱 번째 초우주 운영에 그의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 일곱 번째 구체의 이름이 오르본톤인데, 이는 영의 파라다이스 위성들이

그들과 관련된 초우주처럼 같은 이름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초우주들이 그들을 따라 이름이 붙여졌다.

17:1.6 (198.6) 일곱 번째 초우주의 집행 구체에서, 오르본톤의 관련사들을 똑바로 유지하는 일에 참여하는 요원들은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설 정도의 숫자에 이르며, 실천적으로 천상 지능체의 모든 계층을 포용한다. 개인성을 파송하는 모든 초우주 봉사들은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 그리고 생각 조절자를 제외) 파라다이스를 오가는 그들의 우주여행에서 이들 일곱 집행 세계를 통과해 지나가며, 그리고 여기에 초우주들 안에서 기능하는 셋째근원이며 중심에 의해 창조된 모든 개인성들에 대한 중앙 등록부가 유지된다. 이들 영의 집행세계 중 하나에 있는 물질적, 모론시아적, 그리고 영적 기록들의 체계는 심지어 나의 계층의 존재까지도 놀라게 만든다.

17:1.7 (199.1) 최극집행자들의 직속 종속들은 상당히 큰 부분이 파라다이스-하보나 개인성들의 삼위일체화 아들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상승하는 체계의 오랜 세월에 걸친

훈련에서 영화롭게 된 필사자 졸업생의 삼위일체화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삼위일체화 아들들은 파라다이스 최종의 무리단의 최극협의회 우두머리에 의해 최극집행자들과 함께 봉사하도록 지정된다.

17:1.8 (199.2) 각각의 최극집행자는 두 개의 자문내각이 있다: 각 초우주의 본부에 있는 무한한 영의 자녀들은 그들의 최극집행자의 1차 자문내각에서 1,000년 동안 봉사하도록 그들 계급에서 대표자들을 선정한다. 시간의 상승하는 필사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에는, 파라다이스 달성의 필사자들, 그리고 영화롭게 된 필사자들의 삼위일체화 아들들로 구성하는, 2차 내각이 있다; 이 기구는 일곱 초우주 본부에 과도기적으로 거하는 완전하고 상승하는 존재들에 의해 선택된다. 다른 모든 주요 관련사들은 최극집행자들에 의해 지정된다.

17:1.9 (199.3) 때때로, 큰 비밀회의들이 이들 영의 파라다이스 위성들에서 열린다. 이 세계들에 배정된 삼위일체화 아들들은, 파라다이스에 도달한 상승자들과 함께, 상승하는 삶의 투쟁과 승리의 재결합 속에서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영(靈) 개인성들과 회합을 갖는다.

최극집행자들이 그러한 형제우애의 회합들을 항상 주관한다.

17:1.10 (199.4) 파라다이스 시간으로 1,000년마다 한 번, 일곱 최극집행자들이 그들의 권한의 자리를 비우고 파라다이스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은 창조의 지능체 무리들에게 우주 인사와 성공 바람을 비는 그들의 1,000년마다의 비밀회의를 갖는다. 이 사건 많은 행사는 모든 반영 영 집단의 우두머리인, 장엄자의 현존 바로 앞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들은 우주 반영이라는 독특한 기능을 통하여 대우주에서 그들의 모든 연관-동료들과 그렇게 동시에 교통할 수 있다.

제 2 장. 장엄자—반영의 우두머리

17:2.1 (199.5) 반영 영들은 신성한 삼위일체에 기원이 있다. 독특하고 조금은 신비로운 이들 존재들은 50명 이다. 이들 비범한 개인성들 중 일곱 명은 한꺼번에 창조되었고, 그렇게 각각의 창조적인 에피소드는, 어떤 한 분의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연락관과 일곱 주(主) 영들의 한 분에 의하여 일어나게 되었다.

17:2.2 (199.6) 시간의 여명기에 발생하는 이 막중한 활동행위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 함께 공동 창조자들로써 기능하려는, 주(主) 영들로 대표되는, 최극 창조자 개인성들의 최초 노력을 나타낸다. 삼위일체의 창조 잠재와 최극 창조자들의 창조 힘의 이 연합이 최극존재의 실재성의 바로 근원이다. 그러므로 반영하는 창조의 순환주기가 과정을 다 마쳤을 때, 일곱 주(主) 영들 각자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 완전한 창조 동조를 이루었을 때, 49번째 반영 영이 개인성구현되었을 때, 그때 어떤 새롭고도 멀리 미치는 반작용, 최극존재에게 새로운 개인성 특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또 우주들의 우주에 두루 49명의 반영 영과 그들의 연관-동료들의 모든 일의 파라다이스 중심이자 반영 우두머리인 장엄자의 개인성구현에서 절정을 이루는, 그러한 반응이 신(神) 절대자 안에서 일어났다.

17:2.3 (200.1) 장엄자는 참된 개인, 시간과 공간의 모든 일곱 초우주들안에서의 반영현상의, 개인적이고도 결코 틀림없는 중심이다. 그는 일곱 주(主) 영들의 집합장소에 있는 만물의 중심 가까이에 영구 파라다이스 본부를 유지한다. 그는 멀리-퍼지는 창조에서 반영 봉사의 조화-

협동과 유지에만 오로지 관여한다; 그는 달리 우주 관련사들의 관리-행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17:2.4 (200.2) 장엄자는 파라다이스 개인성들에 대한 우리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는 신(神) 절대자와의 기능적 연락 안에서 최극존재가 유일하게 창조한, 실존하는 신성의 개인성이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이지만, 그러나 그는 우주섭리의 지금의 위상과 배타적으로 그리고 겉보기에 자동적으로 관계하고 있다; 그는 지금, 우주개인성들의 기타 (비(非)반영적) 계층들과 관계되는 어떠한 개인적 수용력 속에서도 기능하지 않는다.

17:2.5 (200.3) 장엄자의 창조는 최극존재의 최초의 최극 창조활동을 알리는 것이었다. 활동하려는 이 의사는 최극존재 안에서 의지적이었지만, 신(神) 절대자의 엄청난 반응은 미리 알려지지 않았다. 하보나의 영원-출현 이후에, 그렇게 거대하고도 멀리-퍼지는 힘의 정렬 그리고 기능적 영 활동들의 조화-협동의 그러한 거대한 사실화를 우주가 목격한 적이 없다. 신(神)은 최극존재의 창조의지에 응답하고 그의 연관-동료들은 그들의 목적인 의도를 뛰어넘고 그리고 그들의 개념적 예상을 크게 초월하였다.

17:2.6 (200.4) 우리는, 최극자와 궁극자가 신성의 새로운 차원에 도달하고 그리고는 개인성 기능의 새로운 권역으로 올라가게 될지도 모를, 향상된 우주 조화-협동의 상상이 안 되는 힘을 지닐 예상하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한 또 다른 존재들이 신(神)구현화 되는 영역 안에서 목격될 지도 모를 그러한 곳, 미래시대의 일들의 가능성 앞에서 경이로움을 가지고 서 있다. 체험적 신(神)과 실존적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사이의 그러한 관계통일에 응답하는 신(神) 절대자의 잠재에는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제 3 장. 반영 영

17:3.1 (200.5) 49명의 반영 영들은 삼위일체 기원이지만, 그들의 출현에 따른 각 일곱 창조적 에피소드들은 본성에서 공동조상 주(主) 영의 특징들을 닮은 존재 유형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의 신성(神性) 특징들의 관계적-연합에서 일곱 가지 가능한 조합의 본성들과 성격들을 다양하게 반영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각 초우주의 본부는 이 일곱 반영 영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분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모든 가능한 현시활동의 전체 위상들의 완전 반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러한 현상이 일곱 초우주 중

어느 부분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곱 유형의 각각의 한 분이 요구된다. 따라서 각 유형의 한 분이 각각의 초우주에서 봉사하도록 배정되었다. 서로 다른 일곱 반영영들로 이루어진 이 집단은 각 영역의 반영초점에 초우주들의 수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영적 극점의 지점과는 동일하지 않다.

17:3.2 (200.6) 반영 영들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 명칭들은 공간의 세계들에 계시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이들 존재의 본성과 성격과 관계되고 파라다이스 비밀 구체들의 일곱 우주 신비 중 하나의 일부분이다.

17:3.3 (201.1) 반영의 속성, 공동 행위자, 최종 존재 그리고 주(主) 영들의 마음 차원의 현상은, 우주(宇宙) 지능의 이 광대한 기획 활동에 관련된 모든 존재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한 신비가 있다: 주(主) 영들뿐만 아니라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들도, 단독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그들이 장엄자의 이들 49명 연락 개인성들에서 이처럼 현시되는 것처럼 그렇게, 조화-협동하는 이들 우주 반영의 힘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래도 그들은, 놀랍도록 자질로서 부여 받은 모든 이들

존재들의 창조자들이다. 신성의 유전형질은 창조자에서는 식별 불가능한 어떤 속성들을 때때로 창조체 안에서 나타낸다.

17:3.4 (201.2) 반영 봉사의 성원들은, 반영 영들과 장엄자는 제외하고, 모두가 무한한 영 그리고 그의 즉각적인 연관-동료들과 종속들의 창조체들이다. 각 초우주의 반영 영들은 그들의 반영 영상 도움자,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에서 그들의 개인적 음성들의 창조자들이다.

17:3.5 (201.3) 반영 영들은 단순히 전달하는 대리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잘 간직하는 개인성들이기도 하다. 그들의 자손, 2품천사들 역시 보존 또는 기록하는 개인성들이다. 참된 영적 가치의 모든 것은 중복으로 등록되며, 한 부는 반영 영들의 광대한 직원에 속하는 2품천사 개인성들의 수많은 계층들 중 하나에 있는 몇몇 구성원의 개인성 장치 속에 보관된다.

17:3.6 (201.4) 우주들의 공식 기록은 천사 기록자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통해 전달되지만, 참된 영적 기록들은 반영에 의해 수집되고, 무한한 영의 가족에 속하는 적당하고도 알맞은 개인성들의 마음속에 보존된다.

이것들은 우주의 형식적인 그리고 죽은 기록들과는 대조적으로 살아있는 기록들이며, 그것들은 무한한 영의 기록하는 개인성들의 살아있는 마음들 속에 완전하게 보존된다.

17:3.7 (201.5) 반영 조직은 또한 모든 창조의 소식-수집 그리고 명령-배포 기능구조이기도 하다. 그것은 다양한 방송 서비스들의 주기적 기능과는 대조적으로 부단하게 운영된다.

17:3.8 (201.6) 지역우주 본부에서 나오는 중요한 모든 것은 선천적으로 그것의 초우주의 본부에 반영된다. 그리고 거꾸로, 지역우주 의의(意義)에 대한 모든 것은 그들의 초우주 본부로부터 지역우주 수도를 향해 밖으로 반영된다. 초우주들을 향해 상승하는 시간 우주들로부터의 반영 봉사는 겉으로 보기에 자동적이거나 또는 자아-작동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모두 매우 개인적이고 지능적이다; 그 정확성은 개인성 협동의 완전에서 오는 결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절대자들의 미(未)개인적 현존-행위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가 없다.

17:3.9 (201.7) 생각 조절자들이 우주 반영체계의 작동에 참여하지 않는 반면, 우리는 모든 아버지 단편들이 이들 활동행위들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들의 내용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각각의 이유를 갖고 있다.

17:3.10 (201.8) 현 우주 시대 동안 가외(加外)-파라다이스 반영 봉사의 공간 범위는 일곱 초우주들의 가장자리로 제한되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으로는, 이 봉사의 기능이 시간과 공간에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알려진 모든 하위-절대 우주 순환회로들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17:3.11 (201.9) 각 초우주의 본부에서 반영 조직 활동들은 분리된 단위로 활동한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장엄자의 지도에 따라, 일곱 최극집행자들이 1,000년마다 인사를 나누는 때에 그리고 빛과 생명 안에 전체 지역우주가 정착됨에 따라 벌어지는 축제 절기에서처럼, 일곱 전체는 우주적 일치에서 활동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제 4 장. 반영 영상 도움자

17:4.1 (202.1) 49명의 반영 영상 도움자들은 반영 영들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각 초우주에는 정확하게 일곱 명의

도움자들이 있다. 유버사의 일곱 반영 영들의 첫 번째 창조활동은 그들의 일곱 영상 도움자들을 생산하는 것이었고, 각 반영 영은 자기 자신의 도움자를 창조하였다. 영상 도움자들은, 일정한 속성과 특징에서, 그들의 창조 어머니 영들의 완전한 재현들이다; 그들은 반영이라는 속성이 빠진 실질적 복제들이다. 그들은 참된 영상들이며 반영 영들과 초우주 당국 사이의 통신하는 통로로서 끊임없이 기능한다. 영상 도움자들은 단순한 보좌관들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반영하는 영 조상들의 실재적 대표자들이다; 그들은 영상들이며, 그들 이름과 참으로 맞는다.

17:4.2 (202.2) 반영 영들 자신은 참된 개인성들이지만 물질적 존재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계층에 속한다. 또한 초우주 본부 구체에서도 그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들과의 모든 개인적 교감에서 그들의 영상 도움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영상 도움자들과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접촉에서, 때로는 한 명의 도움자가 알맞게 기능하지만, 다른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전승으로 위임된 통신의 충만한 그리고 적절한 제시를 위해 둘, 셋, 넷 또는 심지어 일곱 명 전체가

요구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영상 도움자들의 메시지들은 통신의 내용이 요구할 수있는 바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나, 둘, 또는 세분 모두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게 받아들여진다.

17:4.3 (202.3) 영상 도움자들은 언제까지나 그들의 조상이 되는 영들 옆에서 봉사하며, 그들은 그들 재량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조력자 2품천사 무리를 갖고 있다. 영상 도움자들은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훈련 세계들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기능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필사자 진보의 우주적 기획의 지능적 봉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너희는 너희가 유버사 학교에 머물고 있을 때 그들과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개인적 존재들로 보이는 이 존재들에게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선택의 힘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각 개별 영 조상의 개인성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참된 영상들이다. 한 계급으로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반영과 친밀하게 접촉하지 않는다. 항상 반영적 본성을 가진 어떤 존재가, 너희와 그 봉사의 실재작용 사이에 끼어있게 될 것이다.

제 5 장. 순환회로의 일곱 영

17:5.1 (202.4) 하보나 순환회로 일곱 영은 중앙우주의 일곱 순환회로에 대한 무한한 영과 일곱 주(主) 영들의 미(未)개인적 공동 대표자들이다. 그들은 주(主) 영들의 하인이자, 그들은 그들의 집단적 자손들이다. 주(主) 영들은 일곱 초우주들에 뚜렷하고도 다양하게 하는 행정-관리적 개별성을 제공한다. 하보나 순환회로의 이들 균일한 영들을 통하여 그들은 중앙우주에 관한 통합되고, 균일 되고, 그리고 조화-협동된 영적 감독을 제공할 수 있다.

17:5.2 (202.5) 순환회로 일곱 영은 각각 단일 하보나 순환회로에 스며드는 것으로 제한된다. 그들은 영원으로 늘 계신이, 개별 하보나 세계들의 통치자들의 체제와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일곱 최극집행자들과 연락을 이루고 있으며, 그들은 최극존재의 중앙우주 현존과 동조한다. 그들의 일은 전적으로 하보나에 국한된다.

17:5.3 (203.1) 이들 순환회로의 영들은 그들의 개인적 자손, 3차 초(超)천사를 통하여, 하보나에 머물고 있는 자들과의 접촉을 가진다. 순환회로 영들이 일곱 주(主) 영들과

공존하는 동안, 3차 초(超)천사의 창조에서의 그들의 기능은 시간의 첫 순례자들이 그랜드판다의 시대에 하보나의 외부 순환회로에 도착할 때까지 큰 중요성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17:5.4 (203.2) 너희가 하보나에서 한 순환회로에서 다음 순환회로로 전진함에 따라, 너희는 순환회로들의 영들에 대해 배우게 되겠지만, 설사 너희가 그들의 영적 영향력을 개인적으로 즐기고, 그 미(未)개인적 현존을 인식한다 해도, 너희는 그들과 개인적 교제를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17:5.5 (203.3) 순환회로 영들은 생각 조절자들이 진화적 우주들의 세계들에 거주하는 필사 창조체들에게 관계되어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하게 하보나의 원주민 거주자들과 관계되어 있다. 생각 조절자들처럼, 순환회로 영들은 미(未)개인적이며, 그들은 우주 아버지의 미(未)개인적 영들이 필사 사람들의 유한 마음에 깃드는 것과 매우 비슷하게 하보나 존재들의 완전 마음들과 교제한다. 그러나 순환회로들의 영들은 결코 하보나 개인성들의 영원한 일부분이 되지 않는다.

제 6 장. 지역우주 창조 영

17:6.1 (203.4) 지역우주 창조 영들의 본성과 기능에 관한 많은 것은 지역 창조계들의 조직과 관리에 있어서 창조자 아들들과의 그들의 관계적-연합에 관한 이야기에 잘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일곱 최극 영 집단들에 대한 이 설명의 부분으로서 이야기될, 이 놀라운 존재들의 지역우주-이전(以前) 체험들의 특징들이 많이 있다.

17:6.2 (203.5) 우리는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생애의 여섯 위상들을 잘 알고 있으며, 일곱 번째 활동 단계의 가능성에 대하여 많이 추측한다. 실존(實在)의 서로 다른 이 단계들은 다음과 같다:

17:6.3 (203.6) 1. 최초의 파라다이스 분화. 창조자 아들이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공동 활동에 의해 개인성구현될 때, 무한한 영의 개인 안에서는 "최극 보완 반응"이라고 알려진 어떤 것이 동시적으로 발생한다. 우리는 이 반응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공동 창조자의 창조 잠재 안에 포용된 개인성구현할 가능성들에 대한 선천적 변경을 뜻하는 것은 납득하고 있다. 조화-협동 창조자 아들의 탄생은 이 파라다이스 아들의 미래 지역우주 배우자가 될 잠재가 무한한 영의 개인 안에서 탄생함을

뜻한다. 우리는 실존개체의 이 새로운 전(前)개인적 정체화구현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이 그러한 창조자 아들의 생애에 대한 파라다이스 기록들에서 찾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17:6.4 (203.7) 2. 예비적 창조자관계 훈련. 우주들의 조직과 관리-행정에 있어서 미가엘 아들의 예비적 훈련의 긴 기간 동안, 그의 미래 배우자는 더욱 나아가며 실존개체의 발전과 운명의 집단의식을 겪는다.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집단-의식의 실존개체가 공간 인식을 시작하고 우주 창조와 관리-행정에서 상호 보완적인 미가엘과 협동하는 그녀의 미래 활동에서의 영 기술 습득에 필수인 예비훈련을 시작한다고 추측한다.

17:6.5 (204.1) 3. 물리적 창조 단계. 창조자신분 책임이 영원한 아들에 의해 미가엘 아들에게 부과될 때, 이 새로운 창조자 아들이 운명되어진 초우주를 지도하는 주(主) 영은, 무한한 영의 현존 안에서 "정체화구현의 기도(祈禱)"에 대한 표현을 내놓는다; 그리고 처음으로, 뒤이어지는 창조 영의 실존개체가 무한한 영의 개인으로부터 차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청원하는 주(主) 영의 개인에

직접적으로 나아가면서, 이 실존개체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인식에서 사라지고, 이 주(主) 영 개인의 일부분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공간의 모험을 위해 창조자 아들이 떠나는 순간까지, 새롭게 정체성이 확인된 창조 영은 주(主) 영과 함께 남아 있다; 거기에서 주(主) 영은 창조자 아들의 보호에 새로운 영(靈) 배우자를 위탁하며, 그와 동시에 영 배우자에게 영원한 충성과 끝없는 복종을 책임 지운다. 그리고 나서 파라다이스에서 있었던 가장 심오하게 감동적인 에피소드 중 하나가 발생된다. 우주 아버지는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의 영원한 연합을 인정하는 그리고 초우주 사법권의 주(主) 영에 의한 관리-행정의 어떤 공동 힘의 증여(贈與)를 확인하는 말씀을 한다.

17:6.6 (204.2) 아버지-결합 창조자 아들 그리고 창조 영은 다음에 그들의 우주 창조 모험 여행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우주의 물질적 조직화의 길고도 벅찬 기간에 두루 관계적-연합된 이 형태에서 함께 일한다.

17:6.7 (204.3) 4. 생명-창조 시대. 창조자 아들에 의해 생명 창조 의지가 선포됨에 따라, 파라다이스에서는 일곱 주(主)

영들이 참여하고 주관하는 그리고 감독하는 주(主) 영들에 의해 개인적으로 체험되는 “개인성구현 예식”이 뒤 따른다. 이것은 창조자 아들의 영 배우자의 개별존재성에 대한 파라다이스 신(神)의 공여이며 무한한 영의 개인 안에서의 “1차 분출” 현상으로 우주에 현시하게 된다. 파라다이스에서의 이 현상과 동시에, 지금까지 미(未)개인적이었던 창조자 아들의 영 배우자는 모든 실천적 의도들과 목적들에 대하여 진실한 개인이 된다. 앞으로 그리고 언제까지나 늘, 바로 이 지역우주 어머니 영은 개인으로 간주될 것이며 이어지는 생명 창조의 모든 개인성 무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17:6.8 (204.4) 5. 증여-이후 시대. 창조자 아들이 자신의 일곱 번째 증여 이후에 그리고 그의 충만한 우주 주권 성취 이후에 우주 본부로 돌아올 때, 창조 영의 결코-끝남없는 생애에는 또 다른 그리고 커다란 변화가 발생한다. 그러한 경우에, 모인 우주의 관리행정자들 앞에서, 승리한 창조자 아들은 우주 어머니 영을 공동주권으로 상승시키고 영 배우자가 자신과 동등함을 인정한다.

17:6.9 (204.5) 6. 빛과 생명의 시대. 빛과 생명의 시대가 수립됨에 따라 우주 공동주권은 창조 영 생애의 여섯 번째 위상에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대한 체험의 본성을 묘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것들은 네바돈 안에서의 진화의 미래단계에 어울린다.

17:6.10 (204.6) 7. 계시되지 않은 생애. 우리는 지역우주 어머니 영 생애의 이러한 여섯 위상들을 알고 있다. 불가피하게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된다: 일곱 번째 생애가 있는가? 우리는 최종자가 필사자 상승에서 그들의 마지막 운명으로 되도록 출현되는 것을 달성할 때, 그들이 여섯 번째 단계의 영 생애로 들어가는 것으로 기록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는 최종자가 우주 임무에 있어서 또 다른 그리고 계시되지 않은 생애를 기다릴 것으로 추측한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주 어머니 영들이 창조자 미가엘들의 계층과 함께 우주봉사와 충성스러운 협동으로 개인적 체험에서 그들의 일곱 번째 위상을 구성하게 될 어떤 발견되지 않은 생애를 그들 앞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싶다는 것이 단지 예상되어지는 것이다.

제 7 장. 보조 마음-영

17:7.1 (205.1) 이들 보조 영들은 창조자 아들과 그러한 창조 영의 공동 창조한, 그 창조계 안에 있는 살아있는 창조체들에 대한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칠중 마음 증여이다. 이 증여 행위는 영이 개인성 특권들을 가지는 지위로 상승하는 시점에서 가능하게 된다. 일곱 보조 마음-영들의 기능과 본성에 대한 설명은, 너희의 네바돈 지역우주에 관한 이야기에 속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이다.

제 8 장. 최극 영들의 기능

17:8.1 (205.2) 최극 영들의 일곱 집단은, 무한한 영으로 그리고 공동 행위자 둘 모두로서 기능하는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기능적 가족의 핵을 구성한다. 최극 영들의 권역은 파라다이스에 있는 삼위일체의 현존으로부터 우주의 행성들에서의 진화적-필사 계층의 마음기능에 이르기까지 뻗쳐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강하는 행정-관리적 차원들을 통합하고 그곳에서의 성원들의 다중 기능들을 조화-협동한다. 그것이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 연락하는 반영 영 집단, 미가엘 아들과 협조하는 창조 영이든지, 또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주변을 도는 일곱 주(主) 영들이든지 간에, 최극 영들의 활동은 중앙, 초-그리고 지역우주 어디서든지 마주치게 된다. 그들은 “늘

계신이들”의 계층의 삼위일체 개인성들과 그리고
“아들들”의 계층의 파라다이스 개인성들과 똑같이
기능한다.

17:8.2 (205.3) 최극 영 집단들은 그들의 무한 어머니 영과 함께,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광대한 창조체 가족의 직접적
창조자들이다. 모든 계층의 돌보는 영들은 이 관계적-
연합으로부터 나온다. 1차 초(超)천사는 무한한 영에서
기원된다; 이 계층의 2차 존재들은 주(主) 영들에 의해
창조된다; 3차 초(超)천사는 순환회로 일곱 영에 의해
창조된다. 반영 영들은, 집단적으로, 천사 무리라는 놀라운
계층, 초우주 봉사의 막강한 2품천사의 어머니인-만드신
이들이다. 창조 영은 지역 창조의 천사 계층의 어머니이다;
그러한 세라핌천사 사명활동자들은 그들이 중앙우주의
원형틀을 따라서 만들어졌지만, 각 지역우주에서는
기원적이다. 돌보는 영들의 이 모든 창조자들은 무한한 영,
모든 천사 사명활동자들의 기원적이고도 영원한 어머니의
중앙거점에 의해 간접적으로 도움을 얻을 뿐이다.

17:8.3 (205.4) 일곱 최극 영 집단들은 거주민이 사는 창조의
조화-협동자들이다. 그들을 지도하는 우두머리들, 일곱

주(主) 영들의 관계적-연합은 칠중 하느님의 멀리-퍼지는 활동들을 조화-협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7:8.4 (205.5) 1. 집단적으로, 주(主) 영들은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삼위일체의 신성 차원에 거의-동등하다.

17:8.5 (205.6) 2. 개별적으로, 그들은 삼원적 신(神)의 시원적 연관 가능성들을 다 소모시킨다.

17:8.6 (206.1) 3. 공동 행위자의 다양한 대표자로서, 그들은 최극존재의, 그가 아직 친히 행사하지 않은, 영-마음-힘 주권의 저장소이다.

17:8.7 (206.2) 4. 반영 영들을 통하여, 그들은 우주적 반영의 파라다이스 중심인 장엄자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초우주 정부를 동조(同調)시킨다.

17:8.8 (206.3) 5. 지역우주 신성한 사명활동자들의 개별존재성구현에서의 그들의 참여에서, 주(主) 영들은 칠중 하느님의 마지막 차원, 지역우주의 창조자 아들-창조 영 연합에 기여한다.

17:8.9 (206.4) 공동 행위자 안에 선천적인 기능적 합일은, 일곱 주(主) 영들, 그의 1차 개인성들 안에서 진화하는 우주에

드러난다. 그러나 미래의 완전하게 된 초우주들에서는 이
합일이 의심할 여지없이 최극자의 체험적 주권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을 것이다.

17:8.10 (206.5) [유버사의 신성한 조연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18 편 최극 삼위일체 개인성

18:0.1 (207.1) 최극 삼위일체 개인성들은 모두 특별한 봉사를
위해 창조된다. 그들은 어떤 특정 임무의 실행완료를 위해
신성한 삼위일체에 의해 고안되며, 그들은 기법의 완전과
헌신의 최종으로 봉사하도록 분별화된다. 최극 삼위일체
개인성들에는 일곱 계층들이 있다:

18:0.2 (207.2) 1. 최극위의 삼위일체화된 비밀.

18:0.3 (207.3) 2. 영원으로 늘 계신이

18:0.4 (207.4) 3. 옛적으로 늘 계신이

18:0.5 (207.5) 4. 완전으로 늘 계신이

18:0.6 (207.6) 5.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

18:0.7 (207.7) 6. 연합으로 늘 계신이

18:0.8 (207.8) 7. 충심으로 늘 계신이

18:0.9 (207.9) 행정-관리적으로 완전인 이 존재들은 확정적이고 최종적인 숫자를 이루고 있다. 그들의 창조는 과거의 사건이다; 더 이상 개인성구현되지 않는다.

18:0.10 (207.10) 대우주에 두루 이들 최극 삼위일체 개인성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행정-관리적 정책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공의(公義)를 대표하고 그들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집행적 심판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구체들로부터 지역우주들의 본부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들의 구성요소 별자리의 수도에 이르는 행정-관리적 완전의 밀접한 계통을 형성한다.

18:0.11 (207.11) 모든 삼위일체-기원 존재들은 모든 그들의 신성한 속성들에서 파라다이스 완전으로 창조된다. 체험의 영역에서 오직 시간의 흐름만이 조화우주 봉사를 위한 그들의 장치에 추가되어진다. 삼위일체-기원 존재들에게는 불이행의 위험 또는 반역의 위험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신성 요소에 속하며, 개인성 행위의 신성하고도 완전한 경로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알려진 적이 전혀 없었다.

제 1 장. 최극위의 삼위일체화된 비밀

18:1.1 (207.5) 파라다이스 위성들의 가장 안쪽 순환회로에는 일곱 세계들이 있고, 고양된 이 세계들 각각은 10명의 최극위의 삼위일체화된 비밀들로 구성된 무리단에 의해 주관된다. 그들은 창조자들은 아니지만, 최극이고 궁극인 행정-관리자들이다. 이 일곱 형제우애 구체들의 관련사에 대한 처리행위는 70명의 이 최극 지도자 무리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삼위일체의 자녀가 파라다이스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신성한 일곱 구체들을 감독하지만, 이 집단의 세계들은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 순환회로로 널리 알려져 있다.

18:1.2 (208.1) 최극위의 삼위일체화된 비밀들은 그들의 반영하는 구체에 대한 조화-협동 그리고 공동의 지도자들로서 10개의 집단들을 이루어 기능하지만, 또한 그들은 특정 책임 분야에서는 개별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들 특별 세계 각각의 활동은 일곱 주요 부분들로 나뉘어 있으며, 이들 조화-협동 통치자 중 하나가 특화된 활동들의 그러한 각 분야를 주관한다. 나머지 세 명은 다른 일곱 명과 갖는 관계에서, 삼원적 신(神)의 개인적

대표자로서, 하나는 아버지를, 또 하나는 아들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을 대표하면서, 활동한다.

18:1.3 (208.2) 최극위의 삼위일체화된 비밀들을 상징하는 분명한 등급 유사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들은 또한 일곱 개의 뚜렷한 집단 특징들을 나타내기도 한다. 신성별 관련사의 10분 최극 지도자들이 우주 아버지의 개인적 성격과 본성을 반영한다; 이 일곱 구체들 각각도 그와 같다: 10명의 각 집단은 그들의 권역의 특징인 그 신(神) 또는 신(神) 관계적-연합을 닮는다. 상승자별을 통치하는 10명의 지도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병합된 본성을 반영한다.

18:1.4 (208.3) 나는 아버지의 신성한 일곱 세계들에 있는 이 높은 개인성들의 활동에 대하여 거의 계시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최극위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우주 아버지나 영원한 아들 또는 무한한 영에게 접근하는 것과 연관된 독단적인 비밀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神)들은 신성한 완전을 달성하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책과 같지만, 최극위의 비밀들 모두는 결코 충분하게 달성될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창조된 존재들의 칠중

집단화와 관련하는 신(神) 관계적-연합체의 개인성 비밀들을 담고 있는 영역으로 충분하게 뚫고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18:1.5 (208.4) 이 특별한 일곱 세계들에 거주하였을 때 또는 대우주에 두루 기능하는 동안, 우주 존재들의 기본적인 이 일곱 집단화들과 신(神)들의 긴밀하고도 개인적인 접촉에 이 최극 지도자들의 활동이 관여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 개인적 관계들과 비범한 접촉들이 신성시되는 비밀스러움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파라다이스 창조자들은 심지어 그들의 비천한 창조체들 안에 있는 개인성의 사적(私的) 자유와 존엄성까지도 존중한다. 그리고 이것은 개별존재들이나 개인성들의 다양한 독립된 계층 모두에게 진정이다.

18:1.6 (208.5) 심지어 높은 우주 달성을 이룩한 존재들에 대해서도 이 비밀 세계들은 충성심에 대한 시험으로 계속 남아 있다.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느님들을 아는 것이 충분하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성과 완전의 그들의 성격을 아는 것이 자유로이 주어졌지만, 파라다이스 통치자들과 그들의 창조체 존재들 모두와 맺는 개인적

관계 모두를 간파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충분하게 허락되지 않는다.

제 2 장. 영원으로 늘 계신이

18:2.1 (208.6) 하보나의 10억 세계들 각각은 최극 삼위일체 개인성에 의해 지도된다. 이 통치자들은 영원으로 늘 계신으로 알려져 있고, 그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10억 인데, 하보나 구체 각각에 대해 한 명씩이다. 그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자손이지만, 최극위의 비밀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기원에 관한 기록이 없다. 모든-지혜이신 아버지들의 이 두 집단들이 파라다이스-하보나 체계에 속한 그들의 매우 아름다운 세계들을 언제까지나 통치해 왔으며, 그들은 교대 또는 재배치되는 일이 없이 기능한다.

18:2.2 (208.7) 영원으로 늘 계신이는 그들의 권역에 거주하는 모든 의지 창조체의 눈에 보인다. 그들은 규칙적인 행성 비밀회의들을 주관한다. 주기적으로, 그리고 교대로, 그들은 일곱 초우주들의 본부 구체들을 방문한다. 그들은, 일곱 초(超)정부들의 운명을 주관하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 친족관계로 가깝고 신성한 동등이다. 영원으로

늘 계신이가 자신의 구체에서 자리를 비울 때, 그의 세계는 삼위일체 교사 아들의 지도를 받는다.

18:2.3 (209.1) 하보나 원주민들과 그 중앙우주의 살아있는 다른 창조체들 등과 같은, 확립된 계층의 창조체의 경우는 제외하고, 거주하는 영원으로 늘 계신이는 한결같이 그들 자신의 개인적 관념과 이상에 따라 그들 각자의 구체들을 개발해 왔다. 그들은 서로의 행성들을 방문하지만, 복사하거나 모방하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항상 그리고 전적으로 기원적이다.

18:2.4 (209.2) 고안건축물, 자연적 장식물, 모론시아 구조물들, 그리고 영 창조계들은 각 구체마다 배타적이고 독특하다. 각각의 세계는 영속하는 아름다운 곳이고 중앙우주에 있는 다른 어떤 세계와도 전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너희는 하보나를 통하여 파라다이스를 향해 안쪽으로 들어가는 너희 길을 가면서 이 독특하고 장렬한 구체들 각각에서 비교적 길거나 짧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파라다이스를 위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세계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신성한 상승 목표에 대해 안쪽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제 3 장. 옛적으로 늘 계신이

18:3.1 (209.3) 지역우주의 본부를 둘러싸고 있는
훈련세계들로부터 필사자들이 졸업하고 그들의 초우주의
교육구체들로 전진하여 나아갈 때, 그들은 영적 발전에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를 포함하여, 이들 전진한 영역들의
높은 영적 통치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그들이 알아보고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그 지점까지 이미 진보된 것이다.

18:3.2 (209.4)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모두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들은 삼위일체의 병합된 성격과 통합된 본성을
나타낸다. 그들은 개별존재성을 소유하고 개인성에서
다양하지만, 일곱 주(主) 영의 경우처럼 서로 다르지는
않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각각이 뚜렷하고 분리되고
독특한 창조, 각기 다른 일곱 초우주들에게 균일한
지도력을 제공한다. 일곱 주(主) 영들은 본성과 속성에
있어서 다르지만 옛적으로 늘 계신이들, 초우주들의
개인적 통치자들은 모두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균일한
그리고 초(超)완전의 자손이다.

18:3.3 (209.5) 높은 곳에 있는 일곱 주(主) 영들이 그들 각자의
초우주들의 본성을 결정하지만,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동일한 이 초우주들에 대한 관리-행정을 명령한다. 그들은 창조적 다양성에 관리-행정적 획일성을 첨부시키고 대우주의 일곱 부분 집단화들의 근원을 이루는 창조적 차이들 앞에 전체의 조화를 보장한다.

18:3.4 (209.6)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모두 동시에 삼위일체화되었다. 그들은 우주들의 우주의 개인성 기록들의 시작을 나타내는데, 따라서 그들의 이름이—옛적으로 늘 계신이다. 너희가 파라다이스에 도달하여 사물들의 시작에 대해 기록된 서류들을 찾을 때, 너희는 개인성 부분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입력이 21명의 이들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삼위일체화구현에 대한 이야기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8:3.5 (209.7) 이 높은 존재들은 항상 세 명씩 짝을 지어 통치한다. 그들이 개별존재로서 작업하는 많은 활동 위상들이 존재하고, 또 다른 경우들에는 어떤 두 명이 기능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관리-행정하는 좀 더 높은 구체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반드시 함께 활동해야만 한다. 그들은 그들의 거주세계를 친히 떠나는 일이 결코 없지만, 그런 경우라도 그들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는 이들

세계들이 멀리-퍼지는 반영 체계의 초우주 초점이기 때문이다.

18:3.6 (209.8) 옛적으로 늘 계신이 각 3인조의 개인적 거주지들은 그들의 본부 구체에 있는 영적(靈的) 극점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한 구체는 70개의 행정-관리적 구역들로 나뉘어 있고 그 안에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때때로 거주하는 70개의 구분된 수도들을 갖고 있다.

18:3.7 (210.1) 힘에서, 권한의 측면에서, 그리고 사법권의 범위에 있어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시간-공간 창조계들에 대한 어떤 직접적 통치자들 중에 가장 강력하고 막강하다. 광대한 우주들의 우주 전체 안에서 오직 그들만이 의지창조체들의 영원한 소멸에 관련된 최종 집행적 심판의 높은 힘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3명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 모두가 초우주의 대법정의 최종 판결에 반드시 참여한다.

18:3.8 (210.2) 신(神)들 그리고 그들의 파라다이스 연관-동료들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공간 실존 중에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가장 완전하고 가장 만능이고 가장 신성하게 자질로서 부여받은 통치자들이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이

초우주들의 최극 통치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통치 권한을 체험적으로 얻지 못하였으며 그러므로 그들이 틀림없이 그의 대관들이 될 체험적 주권자, 최극존재로 언젠가는 대체되도록 운명되어져 있다.

18:3.9 (210.3) 최극존재는 창조자 아들이 자신의 지역우주에 대한 주권(主權)을 체험적으로 얻는 것과 똑 같이, 체험적 봉사에 의해 일곱 초우주들에 대한 주권을 성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극자의 미완결 진화에 해당하는 현재 시대 동안,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우주들에 대한 조화-협동되고 그리고 완전한 행정-관리적 전반적-통제를 제공한다. 그리고 기원성에서의 지혜와 개별존재성에서의 선제권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모든 판결과 법령의 특징을 나타낸다.

제 4 장. 완전으로 늘 계신이

18:4.1 (210.4) 정확하게 210명의 완전으로 늘 계신이가 존재하고, 그들은 각 초우주의 10개 대구역들의 정부를 주관한다. 그들은 초우주 지도자들을 보좌하는 특별업무를 위하여 삼위일체화 되었고,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즉각적이고도 개인적인 대관들로서 다스린다.

18:4.2 (210.5) 3명의 완전으로 늘 계신이가 각 대구역 수도에
배정되지만,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는 달리, 3명 모두가
동시에 제시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때때로 이 3명 중
한 명이 자신의 영역의 복지와 관련하여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 친히 의논하기 위해 자리를 떠날 수 있다.

18:4.3 (210.6) 대구역들의 이들 삼원적 통치자들은 행정-관리적
세부사항의 숙달에서 각별하게 완전하다, 따라서 그들의
이름이—완전으로 늘 계신이다. 영적 세계의 이
존재들의 이름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우리는 너희 언어로
번역하는 문제에 봉착하였으며, 만족할만한 번역을
제공하는 것이 무척 힘든 경우가 매우 종종 있다. 우리는
너희에게 의미를 주지 못할 멋대로 지은 명칭들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적당한 이름,
너희에게 분명하고도 동시에 기원의 뜻을 어느 정도
대표하게 될 어떤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을 종종
발견한다.

18:4.4 (210.7) 완전으로 늘 계신이는 신성한 조연자들, 지혜의
완전자들, 그리고 그들의 정부에 배정된 우주 검열자들로
구성된 적당-크기의 무리단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더

많은 숫자의 막강한 메신저들, 높은 권한자들, 그리고 이름-번호 없는 자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구역 관련자들의 일상적 작업 대부분은 천상의 수호자와 높은 아들 보좌관들에 의해 수행된다. 이들 두 집단들은 파라다이스-하보나 개인성들 또는 영화롭게 된 필사 최종자들인, 삼위일체화 자손들 중에서 모집된다. 창조체-삼위일체화 존재들의 이 두 계층들 중 어떤 것들은 파라다이스 신(神)들에 의해 재(再)-삼위일체화 되고 그런 후에 그 초우주 정부의 관리-행정을 보좌하도록 보내진다.

18:4.5 (211.1) 대부분의 천상의 수호자와 높은 아들 보좌관들이 대구역과 소구역의 봉사에 배정되지만, 삼위일체화 보호관리자들(삼위일체-포용된 세라핌천사들과 중도자들)은 모든 세 부문, 옛적으로 늘 계신이, 완전으로 늘 계신이 그리고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에서 기능하는, 법정관리들이다. 삼위일체화 대사들(아들-융합 또는 영-융합 본성의 삼위일체-포용된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초우주 안에서 어디서든지 마주칠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소구역의 봉사에 참여한다.

18:4.6 (211.2) 일곱 초우주들의 정부 기획이 충만하게 펼쳐지는 시대가 오기 전에, 실천적으로 이들 정부의 다양한 부문들에 속한 모든 행정-관리자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를 제외하고, 완전 하보나 우주의 다양한 세계에서 영원으로 늘 계신이 밑에서 각지 다른 기간 동안 견습신분으로 봉사했다. 나중에 삼위일체화 된 존재들도 마찬가지로, 옛적으로 늘 계신이, 완전으로 늘 계신이 그리고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의 봉사에 그들에 배정되기 이전에 영원으로 늘 계신이 아래에서 얼마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지내왔다. 그들은 모두 성숙되고, 시험을 거치고, 체험을 쌓은 행정-관리자들이다.

18:4.7 (211.3) 너희는 너희 소구역의 세계들에서 머문 후에 스프랜돈이라는 본부로 나아갈 때 완전으로 늘 계신이를 초기에 보게 될 것인데, 이는 이들 드높여진 통치자들이 시간의 상승하는 창조체들을 위한 보다 높은 훈련의 70개 대구역 세계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완전으로 늘 계신이는, 개인으로, 대구역 학교들을 졸업한 상승자들에 집단 맹세를 실시한다.

18:4.8 (211.4) 시간의 순례자들이 대구역 본부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들에서 하는 일은 주로 지적 본성을 가지는데 이것은 소구역의 일곱 교육 구체들에서 행해지는 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성격을 갖는 훈련과 초우주 본부의 490개 대학 세계에서 행해지는 영적 사업과 대조된다.

18:4.9 (211.5) 너희가 비록 너희가 기원된 지역우주를 포용하는 스프랜돈 대구역의 등록부에만 기입되지만, 너희는 우리 초우주의 10개 주요 부문들을 모두 통과해야만 할 것이다. 너희는 유버사에 도달하기 전에 30명의 오르본톤 완전으로 늘 계신이 모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제 5 장.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

18:5.1 (211.6)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는 초우주들의 최극 지도자들 중 가장 젊은 분들이다; 그들은 세 명으로 집단을 이루어 소구역들의 관련사들을 관장한다. 본성적으로는 그들이 완전으로 늘 계신이와 조화-협동하지만, 행정-관리적 권한에 있어서는 그들은 종속적이다. 이들 개인적으로 영화롭고 신성하게 유능한 삼위일체 개인성들은 정확하게 21,000명이 있다. 그들은 동시적으로

창조되었으며, 그리고 그들은 영원으로 늘 계신이 아래에서 그들의 하보나 훈련을 함께 통과하였다.

18:5.2 (211.7)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는 완전으로 늘 계신이의 그것과 비슷한 연관-동료들과 보좌관들의 무리단을 갖고 있다. 거기에다가 그들은 천상존재들의 다양한 수많은 하위 계층들을 자신들에게 배정해 왔다. 소구역의 관리-행정에 있어서 그들은 많은 숫자의 상승하는 거주 필사자들, 다양한 우대거류민단의 성원들, 그리고 무한한 영 안에서 기원되는 다양한 집단들을 활용한다.

18:5.3 (211.8) 소구역의 정부들은, 배타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초우주의 커다란 물리적 문제들과 관여되어 있다. 소구역 구체들은 주(主)물리통제자들의 본부들이다. 이 세계들에서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세 번째 계층의 최극 힘 중심들의 그리고 주(主)물리통제자들의 일곱 계층들 전체의 활동들을 검사하는 것과 관련되는 연구와 실험을 수행한다.

18:5.4 (212.1) 소구역의 체제가 물리적 문제들과 너무나 널리 관여되기 때문에, 그 세분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가 그 수도 구체에 함께 있는 경우가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한 명은

대구역을 감독하는 완전으로 늘 계신이와 논의하기 위해 떠나 있거나 높은 삼위일체-기원 존재들의 파라다이스 비밀회의에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를 대표하는 동안 자리를 비운다. 그들은 파라다이스에서의 최고회의에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를 대표하는 일에 완전으로 늘 계신이와 교대한다. 그 동안, 다른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는 자신의 관할권에 속하는 지역우주의 본부 세계들에 대해 검사하는 여행으로 떠나 있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통치자들 중 적어도 한 명은 소구역의 본부에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남아 있다.

18:5.5 (212.2) 너희 모두는 언젠가 너희 소구역인 엔사를 담당하는 세 명의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를 알 것인데, 왜냐하면 너희는 그 대구역의 훈련하는 세계들을 향하여 안쪽으로 너희 길을 갈 때 그들의 손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유버사로의 상승에서, 너희는 오직 한 집단의 소구역 훈련 구체들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제 6 장. 연합으로 늘 계신이

18:6.1 (212.3) “늘 계신이”의 계층에 해당하는 삼위일체 개인성들은 초우주 정부의 차원 아래에서는 행정-관리적

수용력을 가지고 기능하지 않는다. 진화하는 지역우주들에서 그들은 오직 조연자들 그리고 충고자들로서만 활동한다. 연합으로 늘 계신이는 지역우주들의 이원적(二元的) 통치자들에게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의해 공인된 연락 개인성들의 집단이다. 조직되고 거주민이 사는 각각의 지역우주는, 지역 창조에 대한 삼위일체의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주 아버지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이들 파라다이스 조연자들 중 한 분을 배정받는다.

18:6.2 (212.4) 그들이 모두 임명을 받지는 못하였더라도, 이 존재들이 700,000명 실존하고 있다. 연합으로 늘 계신이의 예비무리단은 우주 조절 최극협의회로서 파라다이스에서 기능한다.

18:6.3 (212.5)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삼위일체 관찰자들은 우주 정부의 모든 부서들의 행정-관리적 활동들을 조화-협동하는데, 지역우주들의 그것들로부터 구역 정부들을 거쳐 초우주의 그것들에 이르기까지이며,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연합으로 늘 계신이다. 그들은 그들의 상급자들에게 삼중으로 보고를 한다: 그들은 그들

소구역의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에게 물리적이고 반(半)-지적 성질을 가진 관련 자료들을 보고하고, 그들의 대구역의 완전으로 늘 계신이에게 지적이고 준(準)-영적인 사건들을 보고한다; 그들의 초우주의 본부에 있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게 영적 그리고 반(半)-파라다이스적인 문제들을 보고한다.

18:6.4 (212.6) 그들이 삼위일체-기원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든 파라다이스 순환회로들이 상호-통화를 위하여 그들에게 사용 가능하며, 그리하여 그들은 항상 서로 접촉을 유지하고 파라다이스의 최극협의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른 필요한 개인성들과 접촉을 유지한다.

18:6.5 (212.7) 연합으로 늘 계신이는 자신이 배정된 지역우주의 정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관찰자로서의 그의 의무들을 제외하고, 그는 오직 지역적 권한자들의 요구에 의해서만 활동한다. 그는 지역 창조의 모든 1차 협의회들과 모든 중요 비밀회의들의 직권상 회원이지만, 그는 행정-관리적 문제들에 대한 기술적 고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18:6.6 (213.1) 지역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할 때, 그 영화롭게 된 존재들은, 그때에는 진화적 완전의 그런 영역에서 확대된 수용력으로 기능하는, 연합으로 늘 계신이와 자유롭게 연관한다. 그러나 그는 우선적으로 여전히 삼위일체 대사이며 파라다이스 조연자이다.

18:6.7 (213.2) 한 지역우주는 이원적(二元的) 신(神) 기원을 갖는 한 신성한 아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치되지만, 그는 계속적으로 한 파라다이스 형제, 삼위일체-기원 개인성을 옆에 둔다. 창조자 아들이 자신의 지역우주 본부로부터 일시적으로 떠나는 사건에서, 대리 통치자들은 주로 그들의 연합으로 늘 계신이의 조연에 의해 그들의 주요 결정들 대부분을 안내 받는다.

제 7 장. 충심으로 늘 계신이

18:7.1 (213.3) 이 높은 삼위일체-기원 개인성들은 각 지역우주 안에 있는 100개 별자리 통치자들에 대한 파라다이스 충고자들이다. 7천만 명의 충심으로 늘 계신이가 있고, 연합으로 늘 계신이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봉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파라다이스 예비무리단은 우주 사이의 윤리와 자아-관리에 대한 자문 협의회이다.

충심으로 늘 계신이는 그들의 예비무리단의 최극
협의회의 통치에 따라 교대하여 봉사한다.

18:7.2 (213.4) 연합으로 늘 계신이와 지역우주의 창조자
아들과의 모든 관계는, 충심으로 늘 계신이가 지역 창조의
별자리들을 통치하는 보론다덱 아들들의 관계와 같다.
그들은 그들이 배정된 별자리들의 복지에 최극으로
헌신되어 있고 신성하게 신실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이름이—충심으로 늘 계신이다. 그들은 오직
조언자들로서만 활동한다; 그들은 별자리 당국의 초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관리적 활동에 결코 참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별자리 본부를 둘러싸고 있는
고안건축의 훈련 구체들에 있는 상승하는 순례자들에
대한 교육적 사명활동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한 모든 사업은 보론다덱 아들들의 감독아래에 있다.

18:7.3 (213.5) 지역우주의 별자리 안에서 기능하는 모든
충심으로 늘 계신이는 연합으로 늘 계신이의 관할권
아래에 있고 직접 그에게 보고한다. 그들은 상호-통화의
멀리-퍼지는 체계를 갖지 않는데, 지역우주의 한계 안에서
상호-연관하는 것으로 대개 자아-제한되어 있다.

네바돈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떤 총심으로 늘 계신이든지 지역우주 안에서 임무를 수행중인 그의 계층에 해당하는 다른 모든 존재들과 통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18:7.4 (213.6) 우주 본부에 있는 연합으로 늘 계신이처럼, 총심으로 늘 계신이는 별자리 수도에, 그러한 영역들의 행정-관리적 지도자들의 소재지와 따로, 그들의 개인적 거주지들을 유지한다. 그들의 거주지들은 별자리들의 보론다덱 통치자들의 집과는 대조적으로 정말로 수수하다.

18:7.5 (213.7) 총심으로 늘 계신이는 만물의 중심 가까이에 있는 우주 아버지의 신성한 구체들로부터 지역우주들의 1차 부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긴 행정-관리적-자문 사슬에 있어서 마지막 고리이다. 삼위일체-기원 체제는 별자리들과 함께 끝나며; 그러한 파라다이스 총고자들 중 그들의 구성요소 체계들 또는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 영원히 자리 잡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들 후자의 행정-관리적 단위들은 전적으로 지역우주에서 태어난 존재들의 관할 아래에 있다.

18:7.6 (213.8) [유버사의 신성한 조연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19 편 조화-협동 삼위일체-기원 존재

19:0.1 (214.1) 조화-협동 삼위일체-기원 존재라고 명명되는 이 파라다이스 집단은,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을 포용한다, 또한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 높은 초우주 행정-관리자들의 세 집단들, 그리고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의 어느 정도 미(未)개인적 범주에 분류되기도 한다. 심지어 하보나 원주민들도, 파라다이스에 거주하는 수많은 집단의 존재들을 따라서 삼위일체 개인성의 이 분류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 논의에서 고려될 그 삼위일체-기원 존재들은 다음과 같다:

19:0.2 (214.2) 1. 삼위일체 교사 아들

19:0.3 (214.3) 2. 지혜의 완전자

19:0.4 (214.4) 3. 신성한 조연자

19:0.5 (214.5) 4. 우주 검열자

19:0.6 (214.6) 5.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

19:0.7 (214.7) 6. 하보나 원주민

19:0.8 (214.8) 7. 파라다이스 시민

19:0.9 (214.9)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 그리고 아마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까지도 제외하고, 이 집단들은 정확한 숫자에 해당된다; 그들의 창조는 완결되었고 과거의 사건이다.

제 1 장. 삼위일체 교사 아들

19:1.1 (214.10) 너희에게 계시된 천상의 개인성들의 모든 높은 계층들 중에,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만이 이원적(二元的) 역량을 가지고 활동한다. 삼위일체 본성의 기원에 의해, 기능 면에서 볼 때 그들은 신성한 아들관계의 봉사에 거의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다. 그들은 삼위일체-기원 개인성과 이원(二元)-기원 개인성들 사이의 우주 심연에 다리를 놓는 연락하는 존재들이다.

19:1.2 (214.11) 삼위일체 고정아들들이 완성된 숫자에 해당하는 반면, 교사 아들들은 계속해서 증가한다. 교사 아들들의 최종적 숫자가 얼마가 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아무튼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유버사에 보내진 마지막 정기 보고서에서는 봉사하는 이 아들들의 숫자가 파라다이스의

기록에 21,001,624,821명으로 나타나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19:1.3 (214.12) 이 존재들은 그 기원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있는 하느님의 아들들 중에서, 너희에게 계시된 유일한 집단이다. 그들의 범위는 중앙우주와 초우주에 이르고, 거대한 무리단이 각 지역우주에 배정되어 있다. 또한 그들은 다른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하듯이 개별 행성들에서도 봉사한다. 대우주의 기획이 충분하게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 아들들 중 많은 숫자는 파라다이스에서 예비자들에 속해 있으며, 그들은 대우주의 모든 부문에서, 공간의 외로운 세계들에서, 지역우주와 초우주들에서, 그리고 하보나의 세계들에서, 긴급 임무 그리고 특별한 봉사에 자원한다. 그들은 또한 파라다이스에서도 기능하지만, 그들에 대한 상세한 고찰(考察)은 우리가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에 대해 논의하게 될 때까지 미루어 두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19:1.4 (215.1) 아무튼, 이와 관련하여, 교사 아들들이 삼위일체 기원의 최극 조화-협동하는 개인성들임을 밝힐 수 있다. 그렇게 멀리-퍼지는 우주들의 우주에서는 항상, 한정된

관점의 잘못, 실체와 신성의 부분화되어진 개념에 선천적인 악에게 굴복하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19:1.5 (215.2) 예를 들자면: 인간 마음은 단순하고 유한한 것으로부터 복잡하고 무한한 것으로, 인간 기원들로부터 신성한 운명들에게로 진행시킴으로써 이 계시에서 묘사된 조화우주 철학에 접근하기를 대개 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영적 지혜로 이끌지 않는다. 그러한 과정은 발생론적 지식의 어떤 일정형태에 이르는 가장 쉬운 길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껏해야 사람의 기원을 계시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그의 신성한 운명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계시하거나 또는 전혀 계시하지 못한다.

19:1.6 (215.3) 유란시아에서 사람의 생물학적 진화에 대한 연구에서도 심지어는, 사람의 지금-현재 지위와 그의 당면한 문제에 관하여 배타적인 역사적 접근방법에 극심한 반대가 있다. 어떤 실체 문제든지—인간의 또는 신성한, 지구상 또는 조화우주의—그에 대한 참된 시각은 우주 실체의 세 위상들: 기원, 역사, 그리고 운명에 대한 충분하고도 편견 없는 연구와 그리고 상호관련성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이들 세 체험적 실체에 대한

적절한 납득은 현재지위에 대한 지혜로운 평가에 기초를 잘 제공해준다.

19:1.7 (215.4) 생물학적으로든지 또는 신학적으로든지, 인간 마음이 더 높은 것에 접근하기 위하여 낮은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철학적 기법을 따라갈 때, 그것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잘못들을 범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

19:1.8 (215.5) 1. 그것은 개인적 달성 또는 조화우주 운명의 최종적이고도 완성된 진화적 목표를 깨닫는 일에 철저하게 실패할 수 있다.

19:1.9 (215.6) 2. 그것은 우주의 진화적 (체험적) 실체를 과도하게 단순화시키고 그리하여 사실들에 대한 왜곡과 진리에 대한 오용 그리고 운명에 대한 잘못된 개념으로 인도함으로써 최극 철학적 실책을 범할 수 있다.

19:1.10 (215.7) 3. 원인성에 대한 연구는 역사를 통독하는 것이다. 그러나 존재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에 대한 지식이 그러한 존재의 현재 지위와 참된 성격에 대한 지능적 납득을 필연적으로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19:1.11 (215.8) 4. 역사 그 자체만으로는 미래발전—운명—을 적절하게 계시하지 못한다. 유한한 기원들이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오직 신성한 원인만이 최종 결과들을 계시할 수 있다. 영원한 끝은 시간의 시작됨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는 오직 상관관계된 과거와 미래에 비추어야만 참되게 해석될 수 있다.

19:1.12 (215.9)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와 또 다른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조화우주 실존과 모든 개인성 실체의, 무한하고 영원하며 신성한 파라다이스 근원이며 중심으로부터 시간-공간 여행을 시작함으로써 사람과 그의 행성 문제들에게 접근하는 기법을 채택하고 있다.

제 2 장. 지혜의 완전자

19:2.1 (215.10) 지혜의 완전자들은 초우주에서 신성의 지혜를 개인화하도록 고안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특별한 창조체이다. 실존하는 이 존재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70억 명이고, 10억 명이 일곱 초우주들 각각에 배정되어 있다.

19:2.2 (215.11) 그들과 조화-협동 존재들인, 신성한 조연자들 그리고 우주 검열자들과 공통으로, 지혜의 완전자들은 파라다이스의, 하보나의 지혜를 거쳐 지나갔고, 신성별은

제외하고, 아버지의 파라다이스의 구체들의 지혜를 거쳐 지나갔다. 이 체험들이 있는 후에 지혜의 완전자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봉사에 영구적으로 배정되었다. 그들은 파라다이스에서도 봉사하지 않고 파라다이스-하보나 순환회로들의 세계들에서도 봉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적으로 초우주 정부의 관리-행정에 종사하고 있다.

19:2.3 (216.1) 지혜의 완전자들이 기능하는 곳은 어디서나 그리고 언제든지, 신성한 지혜가 거기에서 그리고 그 때 기능한다. 막강하고 장엄한 이들 개인성들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지식과 지혜에는 현존의 실재성과 현시활동의 완전이 있다. 그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지혜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들이 바로 그 지혜이다. 그들은 우주 지식의 적용에 있어서 모든 선생들을 위한 지혜의 근원이다; 그들은 모든 우주들 안에 있는 학문과 식별의 연구기관에게 사려 깊은 분별의 샘이자 판별의 우물이다.

19:2.4 (216.2) 지혜는 기원에서 이중적인데, 완전존재에서 선천적인 신성한 통찰력의 완전으로부터, 그리고 진화적 창조체들에 의해 성취되는 개인적 체험으로부터

도출된다. 지혜의 완전자들은 신(神) 통찰력의 파라다이스 완전의 신성한 지혜이다. 유버사에 있는 그들의 행정-관리적 동료들, 막강한 메신저들, 이름-번호 없는 자들, 그리고 높은 권한자들은, 함께 활동할 때, 체험의 우주 지혜이다. 신성한 존재는 신성한 지혜의 완전을 소유할 수 있다. 진화하는 필사자는 때로 상승 지식의 완전을 달성할 수 있지만, 이들 존재 중 누구도 혼자서는 모든 가능한 지혜의 잠재를 다 내 놓을 수는 없다. 따라서 초우주의 처리행위에 있어서 행정-관리적 지혜의 최고가 성취되는 것이 요구될 때에는 언제든지, 진화적 진보의 체험적 고난을 통하여 초우주 권한의 높은 책임 위치들로 올라간 그 상승하는 개인성들과 신성한 통찰력의 이 지혜의 완전자들이 항상 연관한다.

19:2.5 (216.3) 지혜의 완전자들은 그들의 행정-관리적 총명성의 완성을 위하여 체험적 지혜의 이 보완물을 항상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지혜의 높은 그리고 지금까지 달성되지 않은 차원이, 그들이 언젠가 영 실존의 일곱 번째 단계 안으로 모집된 이후에, 파라다이스 최종자에 의해 성취될 가능성이 있음이 추측되어 왔다. 만일 이 추론이 맞는다면, 진화적 상승의 그러한 완전한 존재들은 모든 창조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효력적인 우주 행정-관리자들이 될 것이 틀림없다. 나는 그러한 것이 최종자의 높은 운명임을 믿는다.

19:2.6 (216.4) 지혜의 완전자들의 다재다능함은 그들이 상승하는 창조체들의 모든 천상의 봉사에 실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지혜의 완전자들과 나의 계층의 개인성, 신성한 조언자들은, 우주 검열자들과 함께, 개별적 행성들과 체계들에게, 그들의 초기 신(新)시대들이든지 또는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할 때든지, 진리를 계시하는 일에 종사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존재들의 가장 높은 계층을 이루고 있다. 때때로 우리 모두는, 최초-생명 행성으로부터 위로는 지역우주 그리고 초우주를 통하여, 특히 후자를 통하여, 상승하는 필사자의 봉사와 닿는다.

제 3 장. 신성한 조언자

19:3.1 (216.5) 이들 삼위일체-기원 존재들은 일곱 초우주들의 영역에게 주는 신(神)의 조언이다. 그들은 삼위일체의 신성한 조언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바로 그 조언이다. 봉사하는 210억 명의 조언자들이 있고, 각 초우주마다 30억 명이 배정되어 있다.

19:3.2 (217.1) 신성한 조언자들은 우주검열자들과 지혜의 완전자들의 동료이며 그리고 대등한 존재들인데, 1명에서 7명의 조언자들이 이 후자(後者) 개인성들 각각과 연관되어 있다. 세 계층들 모두가, 대구역 그리고 소구역들을 포함하여 지역우주 그리고 별자리에서 그리고 지역체계 주권자들의 협의회에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정부에 참여한다.

19:3.3 (217.2) 내가 이 글을 쓰면서 활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개별존재로서 활동하지만, 또한 우리는 상황이 요구할 때에는 셋으로 기능한다. 우리가 집행적 수용력에서 활동할 때는, 한 명의 지혜의 완전자, 한 명의 우주검열자, 그리고 한 명에서 일곱 명에 이르는 신성한 조언자들이 연관된다.

19:3.4 (217.3) 한 명의 지혜의 완전자, 일곱 명의 신성한 조언자들, 그리고 한 명의 우주검열자는 삼위일체 신성의 법정, 시간과 공간의 우주에서 가장 높은 이동 자문기관을 구성한다. 그러한 아홉 명의 집단은 사실-발견 또는 진리-게시 법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것이 문제에 대하여 심판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은 마치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그 문제를 판결한 것과 동일한데, 왜냐하면
초우주들의 역사 전체에 있어서 그러한 판결이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바뀐 적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19:3.5 (217.4) 세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기능하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기능한다. 아홉 명의 법정이 연합된 심의를
거친 후 결정에 도달하면, 모든 의도들과 목적에 대하여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말씀을 완료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파라다이스 통치자들은 행정-관리적
문제들과 정부 규정에서 개별 세계들, 체계들 그리고
우주들과 개인적인 접촉을 가진다.

19:3.6 (217.5) 신성한 조언자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신성한 조언의 완전이다. 우리는 완전의 조언을 대표하며
사실 그 자체이다. 우리가 우리 동료들, 진화 상승의
삼위일체-포용된 그리고 완전하게 된 존재들의 체험적
조언에 의해 보완될 때, 병합된 결론들은 완벽할 뿐만이
아니라 충만하다. 우리의 연합된 조언이 우주검열자에
의해 연관되고 평결되고, 확인되고 그리고 공표 되면,
그때는 우주 총체성의 입구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한 판결들은 관련된 문제와 개재된 상황의 시간-공간

한계 안에서, 신(神)의 절대적 태도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가능성을 대표한다.

19:3.7 (217.6) 삼위일체화된 진화하는 3인조—막강한 메신저, 높은 권한자, 그리고 이름-번호 없는 자—와 연락을 이루는 일곱 명의 신성한 조연자들은, 영적 의미와 실체 가치의 준(準)-파라다이스 차원에서의 인간 관점과 신성한 태도의 연합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초우주를 대표한다. 창조체와 창조자의 연관된 조화우주 태도의 그렇게 가까운 근접성은, 개인성 체험의 모든 위상에서, 하느님인 동시에 인간인 파라다이스 증여의 아들들 안에서만 넘어설 수 있다.

제 4 장. 우주검열자

19:4.1 (217.7) 정확하게 80억 명의 우주검열자들이 실존한다. 독특한 이 존재들은 신(神)의 심판이다. 그들은 단순히 완전한 결정에 대한 반영이 아니다; 그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심판이다. 심지어 옛적으로 늘 계신이도 우주검열자와 관계적-연합하지 않고서는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19:4.2 (217.8) 중앙우주의 10억 개 세계들 각각에 한 명의 검열자가 임명되는데, 거주하는 영원으로 늘 계신이의 행성 관리-행정에 부속되어 있다. 지혜의 완전자뿐만 아니라 신성한 조연자들도 하보나 관리-행정에 그렇게 영구토록 부속되지 않으며, 또한 우리 모두는 왜 우주검열자들이 중앙우주에 주둔하는지 납득하지 못한다. 그들의 현재 활동은 그들이 하보나 안에 배정된 이유를 도저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보나 인구가 부분적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어느 미래 우주 시대에서의 필요성을 예상해서, 거기에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19:4.3 (218.1) 10억 명의 검열자들이 일곱 초우주들 각각에 배정되어 있다. 개별존재 수용력과 그리고 지혜의 완전자와 신성한 조연자들과의 관계적-연합, 둘 모두에서 그들은 일곱 초우주들의 모든 부문에 두루 작용한다. 검열자들은 하보나의 완전세계들로부터 체계 주권자들의 협의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대우주의 모든 차원에서 활동한다, 그리고 그들은 진화 세계의 모든 섭리시대적 판결의 하나의 유기적 부분이다.

19:4.4 (218.2) 우주 검열자가 나타나는 때마다 그리고 그 장소마다, 신(神)의 심판이 그때 그리고 그곳에 있다. 그리고 검열자들이 항상 지혜의 완전자들과 신성한 조연자들과 연락하면서 그들의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연합된 지혜, 조연과 판결을 포용하고 있다. 이 사법적 삼인조(三人組)에서 지혜의 완전자는 “나는 이었다”이고, 신성한 조연자는 “나는 일 것이다”가 되겠지만, 우주 검열자는 항상 “나는 이다”이다.

19:4.5 (218.3) 검열자들은 총합하는 우주 개인성이다. 천 명의—또는 백만 명의—증인이 증언이 되면, 지혜의 음성이 말을 완료하고 신성의 조연이 기록이 되면, 상승에서의 완전에 대한 증언이 추가가 되면, 그러면 검열자가 기능하고, 밝혀진 모든 것의 정확하고도 신성한 총합이 즉시 계시된다; 그리고 그러한 발표는 신성한 결론,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결정의 총합과 본체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검열자가 말을 완료하면,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게 되는데, 왜냐하면 검열자가 그 전에 지나간 모든 것에 대한 참되고도 오류가 없는 전체를 이미 묘사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말할 때, 어떤 항의도 없다.

19:4.6 (218.4) 나는 지혜의 완전자의 마음작용을 가장 충분하게 납득하지만, 내가 우주 검열자의 판결하는 마음의 작용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확실하다. 나에게는 검열자들이 우주 관련사들에 대한 어떤 조사의 과정에서 그들에게 제시된 사실들, 진리들 그리고 조사 결과들의 관계적-연합으로부터 새로운 의미들을 조성하고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주 검열자들은, 완전한 창조자 통찰력과 완전하게 된 창조체 체험의 병합에 대한 기원적인 해석을 내 놓을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파라다이스 완전과 우주 체험의 이 관계적-연합은 궁극에 분명히 새로운 가치를 결국 이루게 될 것이다.

19:4.7 (218.5)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우주 검열자들의 마음 작용에 대하여 우리가 마주치는 마지막 어려움은 아니다. 어떤 주어진 우주 상황에서, 검열자의 기능에 관해 우리가 알거나 짐작하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참작한 후에도, 우리는 결정을 내다보거나 판결을 예측할 수 없음을 여전히 발견한다. 우리는 창조자 태도와 창조체 체험의 관계적-연합의 가능한 결과를 매우 정확하게 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결론들은 항상 검열자 발표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 검열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신(神) 절대자들과 연락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들의 결정들과 통치들의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

19:4.8 (218.6) 지혜의 완전자들, 신성한 조언자들, 그리고 우주검열자들은, 일곱 계층의 최극 삼위일체 개인성들과 함께, 때때로 삼위일체 고정아들로 지칭되어 온 그 10개의 집단을 구성한다. 동시에 그들은 삼위일체 관리행정자들, 통치자들, 집행자들, 충고자들, 조언자들, 그리고 심판관들로 구성되는 거대한 무리단을 이룬다. 그들의 숫자는 370억을 조금 넘는다. 20억 70명이 중앙우주에 그리고 50억 명을 조금 넘는 숫자가 각 초우주에 주둔한다.

19:4.9 (219.1) 삼위일체 고정아들들의 기능적 한계를 묘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들의 행동들이 유한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는 초우주 기록의 활동행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간-공간 조건에 따라 요구될 수도 있고 그리고 주 우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진화에 관계되는, 모든 우주 관리-행정이나 또는 판결 차원에서 활동한다.

제 5 장.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

19:5.1 (219.2) 나는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에 대하여 너희에게 거의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실존하는, 존재의 전적으로 비밀인 계층의 하나이며, 그 기원이 그들의 창조의 근원과 그토록 가까운 우리와 같은 이들에게조차도 그들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는 것이 그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비밀이다. 그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활동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고 신(神)들 중 어느 하나 또는 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셋 전체에 의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우리는 이들 영들이 완성된 숫자에 속하는지 아니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숫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믿고자 한다.

19:5.2 (219.3) 우리는 영감받은 영들의 본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행위성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납득하지 못한다. 그들은 초개인적 영들의 범주에 속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알려진 모든 순환회로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과 공간에 거의 상관없이 활동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행동, 우주들 내부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관찰하는 결과들에서 나타나는

본성으로부터 그들의 성격을 추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에 관하여 거의 알지 못한다.

19:5.3 (219.4) 일정 조건 아래에서, 이들 영감받은 영은 삼위일체
기원의 존재들에 의해 감지되기에 충분하도록 스스로를
개별존재화할 수 있다. 나는 그들을 보아 왔지만; 그들 중
하나를 알아보는 일은 천상의 존재들 중 비교적 낮은
계층들에게는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진화하는
우주들의 행위성에서 때때로, 삼위일체 기원의 어떤
존재든지 자신의 직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들 영을
직접 고용해도 되는 어떤 환경이 또한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실존한다는 것,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명령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며, 때때로 그들의 현존을 인지한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물질적 창조계들이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되기 전에
시간-공간 우주의 행위성을 위탁받은, 현시되고 그리고
분명하게 계시된 조직의 일부는 아니다. 그들은 진화하는
일곱 초우주들의 현재 계층이나 또는 관리-행정에서는
뚜렷하게 식별 가능할만한 위치가 없다. 그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비밀이다.

19:5.4 (219.5) 네바돈의 멜기세덱들은, 그들 계급이 삼위일체화 아들들의 일정 유형의 연관-동료로서, 그들이 배치됨에 따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감소되고 있는 단독 메신저들을 영원한 미래의 언젠가는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이 대신하여 기능하도록 운명되어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19:5.5 (219.6) 영감받은 영들은 우주들의 우주의 단독 영들이다. 영으로서 그들은, 단독 메신저들이 뚜렷한 개인성인 것을 제외한다면, 단독 메신저와 매우 흡사하다. 우리는 영감받은 영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대부분을 단독 메신저들로부터 얻는데, 자석바늘이 자극(磁極)을 반드시 가르치는 것처럼 기능하는 영감받은 영들의 현존에 대한 그들의 선천적인 민감성덕분에 그들이 가까이 있음을 감지한다. 단독 메신저가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 가까이에 있으면, 그는 그러한 신성 현존의 질적 징조와 그리고 또한 영 현존이나 현존들의 등급과 수를 그가 실재로 알 수 있게 하는 매우 분명한 양적 기록을 의식한다.

19:5.6 (220.1) 나는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관련시킬 수 있다: 단독 메신저가, 유란시아에서와 같이, 그 거주민들에게 생각

조절자가 내주하는 행성에 있을 때, 그는 영 현존을 그의 감지-민감성에서의 질적 자극으로 안다. 그러한 예의 경우에는 양적 자극은 없고 오직 질적 동요만이 있다. 조절자들이 오지 않는 행성에 있을 때, 원주민들과의 접촉은 그 어떤 반응도 가져오지 않는다. 이것은 생각 조절자들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영감받은 영에 어떤 방법으로 관계되거나 또는 그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어떤 방법으로 그들은 그들 일의 일정한 위상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알지 못한다. 그들 둘 모두가 만물의 근원이며 중심 가까이에서 기원되지만, 그들은 같은 계층의 존재는 아니다. 생각 조절자들은 아버지로부터만 생겨난다; 영감받은 영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자손들이다.

19:5.7 (220.2) 영감받은 영들은 겉으로 보기에 개별 행성들 또는 우주들의 진화 기획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의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도, 이 계층의 영 현존에 대한 나의 연관-동료인 단독 메신저의 개인적 민감성은 바로 이 순간에도 8미터 넘지 않는 거리에, 영감받은 계층인 그리고 셋째 수준의 힘 현존인

영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가르킨다. 힘 현존의 셋째 수준은 우리에게 세 영감받은 영들이 연락하며 기능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암시한다.

19:5.8 (220.3) 현재 나와 연관된 열 두 계층 이상의 존재들 중, 단독 메신저는 삼위일체의 이 신비스러운 실존개체들의 현존을 감지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더욱이, 우리가 이들 신성한 영들의 가까이 있음을 그렇게 통지받긴 하지만, 우리 모두는 똑같이 그들의 임무를 모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단순히 우리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지, 또는 우리가 시도하는 일이 성공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실재적으로 기여하는지 실제로 알지 못한다.

19:5.9 (220.4) 우리는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이 우주 창조체들의 의식적 깨우침에 헌신하고 있음을 안다. 나는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이 초의식 기법으로 영역의 선생으로서 기능한다는 확고한 결론에 이미 도달하였다. 나는, 본질적인 영적 지식의 광대한 본체,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높은 영적 달성에 필수 불가결한 진리가 있다고 확신한다; 자아-의식은 받아들임의

확실성을 실질적으로 위태롭게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개념에서 옳고, 그리고 나의 계층 전체가 그것을 공감한다면, 도덕적 깨우침의 우주적 기획과 영적 전진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이 간격에 다리를 놓는 일이 이들 영감받은 영들의 임무일 것이다. 우리는 삼위일체-기원 교사들의 이 두 유형들이 그들의 활동에서 어떤 종류의 접촉에 효과를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알지 못한다.

19:5.10 (220.5) 초우주 훈련 세계에서 그리고 하보나의 영원한 순환회로들에서, 나는 완전하게 되는 필사자들과—진화하는 영역들로부터의 영성화 되고 상승하는 혼들—형제우애관계를 맺어 왔지만. 그들은, 단독 메신저들에 들어있는 감지력이 때때로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는 곳에 영감받은 영들이 있음을 가르치는데도, 이 필사자들은 아무도 알아차린 적이 없었다. 나는 높고 낮은 하느님의 아들들의 모든 계층들과 자유롭게 교제해 왔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로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의 훈계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영들의 활동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열거하고 그들의 체험을 돌아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그러나 단독 메신저들을 그리고 때로는 삼위일체-기원 존재들을 제외하고, 천상의 집단들 중 어느 누구도 영감받은 영들의 근접성을 의식한 적이 전혀 없었다.

19:5.11 (221.1) 나는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이 나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그들은 내가 그들과 교통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기를 어렵게 시도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어려움과 한계들은 상호적이고 선천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나는 우주에 독단적인 비밀들이 없음에 대해 만족한다; 그러므로 나는 창조체의 나의 계층에 속하는 이들 영들의 고립에 있을 신비를 풀어보려는 나의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19:5.12 (221.2)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영원한 여행에 첫 발을 방금 디디고 있는 너희 필사자들은, 너희가 “보고” 그리고 “물질적” 확신으로 너희가 진보하기 이전에, 너희가 먼 길을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만일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진보하고자 희망한다면 신앙을 오랫동안 사용할 것이고 계시에 의지하게 될 것이다.

제 6 장. 하보나 원주민

19:6.1 (221.3) 하보나 원주민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직접적 창조체이며, 그들의 숫자는 너희의 제한된 마음의 개념을 넘어선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주의 이들 삼위일체-기원 종족과 같은 그러한 신성하게 완전한 창조체들의 선천적 자질들을 유란시아인 들이 인식할 가능성도 없다. 너희는 이 영화로운 창조체를 정말로 상상할 수가 결코 없을 것이다; 너희는 하보나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며, 그 때 너희는 영 동지로서 그들과 인사할 수 있을 것이다.

19:6.2 (221.4) 너희가 하보나 문화에 속하는 10억 세계들에 오래 머무는 동안 너희는 이 찬란한 존재들에 대한 영원한 친분관계를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간세계들로부터 온 가장 낮은 개인적 창조체와 중앙우주의 완전한 구체들의 원주민인 이 높은 개인적 존재들 사이에서 자라나는 친분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하보나 원주민들과 그들이 길고도 사랑하는 관계적-연합을 이룸에 있어서, 필사자 진보의 이전 단계의 영적 빈궁함을 크게 보상받을 것이다. 동시에, 상승하는 순례자들과 맺는 그들의 접촉을 통하여,

하보나인들은 신성한 완전의 삶을 살면서 항상 가졌던
체험적 장애를 적지 않게 극복하는 체험을 얻는다.
상승하는 필사자와 하보나 원주민 둘 모두에 대한 이득은
크고도 상호적이다.

19:6.3 (221.5) 하보나 원주민들은, 다른 모든 삼위일체-기원
개인성들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완전 속에 구체적으로
투사되고, 다른 삼위일체-기원 개인성들과 같이, 시간의
경과가 체험적 자질의 저장에 추가될 것이다. 그러나
삼위일체 고정아들과는 달리, 하보나인들은 지위에서
진보할 수도 있고, 계시되지 않은 미래의 영원-운명을 가질
수도 있다. 이것은 비-조절자 아버지 단편과 융합하는
수용력을 봉사로-사실화하고, 그렇게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에 회원이 되는 자격을 갖추는, 저들 하보나인들에
의해 예시되었다. 그리고 중앙우주의 이 원주민들에게
열려진 다른 최종자 무리단들이 있다.

19:6.4 (221.6) 하보나 원주민들의 지위의 진화는 유버사에서의
많은 공론을 야기해 왔다. 그들이 여러 파라다이스 최종의
무리단들 안으로 계속 침투하여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창조되지 않기 때문에, 하보나에 머무는

원주민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든다. 이들 활동행위의 궁극적 결과들은 우리에게 한 번도 계시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보나가 그 원주민들을 계속 고갈시키게 될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우리는 외부 공간 차원들의 이어지는 창조시대들 동안 언젠가 최종자 무리단에 하보나인들이 들어가기로 아마도 멈추게 될 것이라는 이론을 환영해 왔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이어지는 우주 시대들에 있어서 중앙우주가 혼합된 집단의 거주 존재들로 가득 차는, 최초의 하보나 원주민들이 시민의 일부분만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품어왔다. 우리는 어떤 계층 또는 유형의 창조체가 미래 하보나에서 거주 지위를 얻는 운명을 그렇게 가질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온 것들은 다음과 같다;

19:6.5 (222.1) 1. 유니비타시아, 지역우주 별자리들의 현재 영구 시민

19:6.6 (222.2) 2. 빛과 생명의 시대가 개화(開花)될 때 초우주들의 거주민이 사는 구체에서 태어날지도 모르는 필사자들의 미래 유형.

19:6.7 (222.3) 3. 이어지는 외부 우주들에서 들어오는 영적
상류층.

19:6.8 (222.4) 우리는 이전(以前) 우주 시대의 하보나가 현재
시대의 하보나와 어느 정도 달랐음을 안다. 우리는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예시하는 그러한 느린 변화를,
중앙우주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일리 있다고 여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주는
정적 상태가 아니며; 오직 하느님만이 변화가 없다.

제 7 장. 파라다이스 시민

19:7.1 (222.5) 파라다이스에는 수많은 집단의 훌륭한 존재들,
파라다이스 시민들이 거주한다. 그들은 상승하는 의지적
창조체들을 완전하게 하는 기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유란시아 필사자들에게 충분하게
게시되지 않는다. 3천이 넘는 이 훌륭한 지능체들의
계층들이 존재하는데, 마지막 집단은 시간과 공간의 일곱
초우주들의 창조적 계획을 선포한 삼위일체의 명령과
동시적으로 개인성구현되어 왔다.

19:7.2 (222.6) 파라다이스 시민들과 하보나 원주민들은
파라다이스-하보나 개인성들로서 통틀어서 명명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19:7.3 (222.7) 이것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의해 실존하게 된
저들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완료시킨다. 그들 중 아무도
길을 잃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의미에서, 그들은 모두 자유의지를 자질로서 부여받았다.

19:7.4 (222.8) 삼위일체-기원 존재들은 통행 특권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세라핌천사들과 같은 운송 개인성들에게 그들이
의존하지 않게 만든다. 우리는 모두 우주들의 우주 안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을 제외하고 우리들은, 단독
메신저들이 가진 거의 믿을 수 없는 속도를 낼 수는 없지만,
공간의 운송 수단들 전체를 활용할 수 있기에 유란시아
시간으로 1년 안에 초우주에서, 그 본부로부터, 어떤
지점까지도 이를 수 있다. 내가 유버사로부터 유란시아로
여행하는 데에 너희 시간으로 109일이 소요되었다.

19:7.5 (222.9) 바로 이들 큰길들을 통해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상호교신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창조체 계층 전체는, 오직

영감받은 영들만 별도로 하고,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자녀들의 모든 부서 안에 포용된 각 개별존재와 접촉을 하면서 바로 그렇다는 것을 발견한다.

19:7.6 (222.10) [유버사의 신성한 조언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20 편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

20:0.1 (223.1) 그들이 오르본톤 초우주 안에서 기능할 때, 하느님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일반적 항목으로 분류된다:

20:0.2 (223.2) 1. 하강하는 하느님의 아들.

20:0.3 (223.3) 2.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

20:0.4 (223.4) 3. 삼위일체화 하느님의 아들.

20:0.5 (223.5) 아들관계의 하강하는 계층들은 직접적이고 신성한 창조의 개인성들을 포함한다. 필사 창조체들과 같은, 상승하는 아들들은 진화라고 알려진 창조적 기법에의 체험적인 참여에 따라서 이 지위를 획득한다. 삼위일체화 아들들은 직접적 삼위일체 기원에 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의해 포용된 모든 존재들을 포함하는 혼합 기원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제 1 장. 하강하는 하느님 아들

20:1.1 (223.3) 하강하는 모든 하느님의 아들들은 높고도 신성한 기원들을 갖는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들 그리고 체계들에서 진화적 기원—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들—의 낮은 창조체들이 파라다이스로 상승하는 진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곳에서 하강하는 봉사의 사명활동에 전념한다. 수많은 하강하는 아들의 계층들 중에, 일곱 가지가 이 장에서 서술될 것이다. 빛과 생명의 중앙 섬에 있는 신(神)들로부터 나오는 그 아들들은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이라고 불리며 다음과 같은 세 계층들이 포함된다:

20:1.2 (223.4) 1. 창조자 아들들—미가엘.

20:1.3 (223.5) 2. 치안법관 아들들—아보날.

20:1.4 (223.6) 3.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데이날.

20:1.5 (223.7) 하강하는 아들관계 중 나머지 네 계층들은 하느님의 지역우주 아들들로 알려져 있다:

20:1.6 (223.8) 1. 멜기세덱 아들

20:1.7 (223.9) 2. 보론다덱 아들

20:1.8 (223.10) 3. 라노난덱 아들

20:1.9 (223.11) 4. 생명운반자

20:1.10 (223.12) 멜기세덱들은 지역우주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 그리고 아버지 멜기세덱의 공동 후손이다. 보론다덱들과 라노난덱들은 모두 창조자 아들과 그의 동료 창조 영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 보론다덱들은 지고자, 별자리 아버지들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라노난덱들은 체계 주권자들 그리고 행성영주들로서 알려져 있다. 생명운반자들의 3중 계층은 초우주 관할권을 갖는 세 옛적으로 늘 계신이 중 하나와 연관된 한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 하느님의 지역우주 아들들의 본성들과 활동들은 그 지역 창조계의 관련사들을 다루는 그 글들에서 더 알맞게 설명되어있다.

20:1.11 (224.1)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3중 기원을 갖는다: 1차 또는 창조자 아들들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 2차 또는 치안법관 아들들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자녀들이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자손들이다. 봉사와 경배와 기도의 입장에서는,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하나이다; 그들의 영은 하나이고, 그들의 일은 질과 완성에 있어서 동일하다.

20:1.12 (224.2) 늘 계신이의 파라다이스 계층들이 신성한 행정-관리자들로 확인되듯이,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계층들은 신성한 사명활동자들—창조자들, 봉사자들, 증여자들, 심판관들, 선생들, 그리고 계시자들—로서 자신들을 나타냈다. 그들은 영원한 섬의 주변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 이르기까지 분포하는데, 이 설명들에 나타나지 않는 중앙 그리고 초우주들에서 복합적인 봉사를 수행한다. 그들은, 그들의 봉사의 본성과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우주에서는 치안법관 그리고 교사 아들들 모두 그 권역을 지배하는 창조자 아들의 지도 아래에서 봉사한다.

20:1.13 (224.3) 창조자 아들들은, 마치 너희 자신의 창조자 아들이 그가 그의 영을 유란시아에 있는 모든 필사 육신들에게 부어주었을 때처럼, 자신들이 통제하고 자신들이 증여할

수 있는, 자신들의 개인들 안에 중심을 이루는 영적 자질을 소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각각의 창조자 아들은 그 자신의 권역에서 이 영적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자질로서 부여받았다; 그는 자신의 권역 안에서 봉사하는 각각의 하강하는 하느님의 아들의 모든 행동과 감정을 직접적으로 의식한다. 여기에 영원한 아들이 모든 우주들의 우주의 어디에 있던지, 그로 하여금 모든 그의 파라다이스 아들과 접촉을 이룩하고 유지하는 절대적인 영적으로 잡아당기는 힘의 신성한 반응, 지역우주의 복제가 있다.

20:1.14 (224.4)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들은 봉사하고 증여하는 그들의 하강하는 직무들에 있어서 아들들로서 봉사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다른 하느님의 아들들이, 우주 아버지의 사랑 넘치는 통치를 기꺼이 인정하기까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에 대한 창조체 헌신에서 그리고 그의 창조자 아들의 우주 주권에 대한 행성의 충성에서 완결을 이루어가는, 행성들을 하나씩 거두어들이도록 고안된, 증여와 영적고양의 임무를 계속하며, 그들이 그들의 증여생애를 완료하였을 때 각자는 그 자신의 창조에서 우주의 아버지로서 기능한다.

20:1.15 (224.5) **칠중 창조자 아들** 안에서는, 창조자와 창조체는 이해심이 있고 동정적이며 자비로운 관계적-연합 속에 언제까지나 혼합되어 있다. 미가엘, 창조자 아들들의 전체 계층은 너무나도 독특해서 그들의 본성과 활동들에 대한 고려는 이것과 연결되는 다음 장에서 설명될 것이며, 반면에 이 장에서는 주로 파라다이스 아들관계의 나머지 두 계층들: 치안법관 아들들 그리고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에 대해서만 주로 다루어질 것이다

제 2 장. 치안법관 아들

20:2.1 (224.6) 영원한 아들에 의해 형성되는 기원적이고도 절대적인 개념이 무한한 영에 의해 계획되는 사랑스러운 봉사의 새롭고도 신성한 이상과 연합할 때마다, 새롭고도 기원적인 하느님의 아들, 파라다이스 치안법관 아들이 산출된다. 이 아들들은 미가엘, 창조자 아들의 계층과는 대조적으로 아보날 계층을 구성한다. 개인적 의미에서는 창조자들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전체 활동 속에서 미가엘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보날들은 행성 사명활동자 그리고 재판관, 시간-공간 영역들의—모든 종족들의, 모든 세계들에 대한, 그리고 모든 우주들에서—치안법관이다.

20:2.2 (225.1) 우리는 대우주에서의 치안법관 아들들의 전체 숫자가 약 10억 명이라고 믿는 이유들을 갖고 있다. 그들은, 전체 우주들의 봉사들로부터 체험 있는 아보날들로 구성되어 있는, 파라다이스의 그들의 최극협의회에 의해 지도를 받는, 자아-관리 조직이다. 그러나 지역우주에 배정되고 임명되었을 때, 그들은 그 권역의 창조자 아들의 지도 아래에서 봉사한다.

20:2.3 (225.2) 아보날들은 지역우주들의 개별 행성에게 봉사와 증여의 파라다이스 아들이다. 그리고 각 아보날 아들이 배타적 개인성을 소유하기 때문에, 어느 둘도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일은 그들이 머무는 영역에서의 개별적으로 독특하며, 그곳에서 그들은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종종 육신화하고 어떤 때에는 진화 세계들의 지상 어머니로부터 태어난다.

20:2.4 (225.3) 비교적 높은 행정-관리적 차원에서의 그들의 봉사이외에도, 아보날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 3중 기능을 갖는다:

20:2.5 (225.4) 1. 사법 활동. 그들은 행성의 섭리시대들이 마무리될 때 활동한다. 시간이 되면, 수십-수백-의 그러한

임무들이 각 개별 세계에서 집행될 것이며, 그들은 섭리시대 종결자들, 잠자는 생존자들의 해방자로서 수없이 여러 번 동일한 또는 다른 세계들로 가게 될 것이다.

20:2.6 (225.5) 2. 치안법관 임무. 이 유형의 행성방문은 대개 증여 아들의 도착 이전에 발생한다. 그러한 임무가 있을 경우 아보날은 필사자 탄생이 배제된 육신화 기법에 의해 영역의 어른으로 나타난다. 이 첫 번째의 그리고 일상적인 치안법관 방문 이후에, 아보날들은 증여 아들의 출현 이전과 이후에 모두 동일한 행성에서 치안법관의 수용력으로 계속 봉사할 것이다. 이 추가적인 치안법관 임무들에 아보날은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어떤 도움도 없는 한 아기로 그 세계에 태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20:2.7 (225.6) 3. 증여 임무. 아보날 아들들은 모두 적어도 한 번 어떤 진화 세계에 필사 종족에게 자신들을 증여한다. 심판을 위한 방문들은 여러 번이고, 치안법관의 임무들은 복수이지만, 각각의 행성에는 오직 한 명의 증여 아들만이 나타난다. 증여 아보날들은 네바돈의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육신화 되었던 것과 같이 여인으로부터 태어난다.

20:2.8 (225.7) 아보날 아들들이 치안법관의 임무와 증여 임무에 봉사하게 될 횡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대개는, 그 체험이 일곱 번을 넘을 때, 그러한 봉사를 적게 받은 아보날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중지된다. 여러 번 증여 체험을 갖는 이 아들들은 그 때 창조자 아들의 높은 개인적 협의회에 배정되고, 그래서 우주 관련사들에 대한 관리-행정에 참여자가 된다.

20:2.9 (225.8) 거주되는 세계들을 위한 그리고 그 위에서의 그들의 일 전체에서, 치안법관 아들은 지역우주 창조체들의 두 계층들, 멜기세덱들과 천사장들의 도움을 받는 반면, 증여 임무들의 경우에는 그들은 또한 마찬가지로 그 지역 창조계 안에서 기원된 찬란한 저녁별들과 동행한다. 모든 행성의 노력에서 있어서, 2차 파라다이스 아들, 아보날들은 봉사하는 그들의 지역우주의 창조자 아들인 1차 파라다이스 아들의 충분한 힘과 권한에 의해 후원을 받는다. 모든 의도들과 목적들에 대하여, 거주민이 사는 구체들에서의 그들의 업무는 마치

창조자 아들이 필사자 거주의 그러한 세계들에게
봉사하는 것처럼 효력이 있고 인정될 수 있다.

제 3 장. 사법적 행동

20:3.1 (226.1) 아보날들은 치안법관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영역들의 치안법관들, 시간 세계들의
이어지는 섭리시대들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잠자는 생존자들을 깨우는 일을
주관하고, 영역에서 심판 자리에 앉으며, 공의(公義)가
보류된 섭리시대의 종결을 짓고, 보호관찰 하는 자비의
시대의 통치를 집행하며, 행성 사명활동의 공간
창조체들을 새로운 섭리시대의 과업에 재배치하고,
그들의 임무를 마친 후에는 그들의 지역우주의 본부로
돌아간다.

20:3.2 (226.2) 그들이 시대의 운명에 대한 심판의 자리에 앉을 때,
아보날들이 진화적 종족들의 숙명을 선포한다, 그러나
그들이 개인적 창조체들의 정체성을 소멸시키는 심판을
내리더라도, 그들은 그러한 판결문을 집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본성의 평결은 오직 초우주 당국에 의해서만
집행된다.

20:3.3 (226.3)

한 섭리시대를 종결짓고 그리고 행성 진보의
신기원을 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화세계에 파라다이스
아보날이 도착하는 것이 반드시 치안법관의 임무 또는
증여 임무는 아니다. 치안법관의 임무들은 가끔, 그리고
증여 임무들은 언제나, 육신화한다; 그러한 임무
아보날들은—글자 그대로—물질적 형태로 행성에서
봉사한다. 그들의 다른 방문들은 "기술적"인 경우이며,
이러한 능력의 경우에는 아보날이 행성 봉사를 위해
육신화 되지는 않는다. 만일 치안법관 아들이 오직
섭리시대 심판관으로서만 온다면, 그는 영적 존재로서
행성에 도착하며, 영역의 물질적 창조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기술적 방문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의 긴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20:3.4 (226.4)

아보날 아들들은 치안법관의 체험과 증여 체험
모두에 앞서서 행성 심판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아무튼,
이러한 임무 중 어느 경우든지, 육신화된 아들이 당면한
행성시대를 심판할 것이다; 이는 필사 육체와 비슷한
모습으로 증여하는 임무를 띠고 육신화할 때, 창조자
아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다. 파라다이스 아들이 진화
세계를 방문하고 그곳의 사람들 중 하나처럼 될 때, 그의

현존은 한 섭리시대를 종결시키고 그 영역에 대한 심판을 이룬다.

제 4 장. 치안법관의 임무

20:4.1 (226.5) 증여 아들의 행성 출현에 앞서서, 거주민이 사는 세계는 대개 치안법관의 임무를 띤 파라다이스 아보날의 방문을 받는다. 만일 그것이 최초의 치안법관 방문이라면 아보날은 항상 물질적 존재로 육신화 한다. 그는 배정된 행성에 필사 종족들 중 한 충만하게-성장한 남자, 충분히 보이는 존재, 물리적 접촉을 할 수 있는, 그의 시대와 세대의 필사 창조체로 나타난다. 치안법관의 육신화에 두루, 아보날 아들과 그 지역 그리고 우주의 영적 기세들 간의 연결은 완벽하고, 단절되지 않는다.

20:4.2 (226.6) 행성은 증여 아들의 출현 이전과 이후에 많은 치안법관의 방문들을 체험할 수 있다. 동일한 또는 다른 아보날들이 섭리시대적 심판관들로서 활동하면서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심판의 그러한 기술적 임무들은 증여도 아니고 치안법관도 아니다, 그래서 아보날들은 그러한 경우에 결코 육신화 되지 않는다. 심지어 행성이 반복적인 치안법관의 임무들로 방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보날들이 필사 육신화를 항상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봉사할 때, 그들은 항상 영역의 어른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는다.

20:4.3 (227.1) 증여 또는 치안법관의 임무들로 육신화 되었을 때,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체험된 조절자들을 소유하고, 이 조절자들은 각각의 육신화마다 다르다. 육신화된 하느님의 아들들의 마음을 점유하는 조절자들은 그들이 내주한 인간-신성한 존재들과의 융합을 통한 개인성을 결코 바랄 수 없지만, 그들은 종종 우주 아버지의 인가로서 개인성구현된다. 그러한 조절자들은 신비 관찰자의 관리-행정, 정체화구현, 그리고 거주민이 사는 영역에 대한 파견을 지도하는 신성별 최극 협의회를 형성한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땅에서의 장막에 대한 필사자 분해를 겪고 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조절자들을 받아들이고 또 인정한다. 이 방법으로, 그 세계 심판관들의 신실한 조절자들은 그들 동료들의 드높여진 우두머리들이 된다.

20:4.4 (227.2) 유란시아는 치안법관의 임무를 띤 아보날 아들을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만일 유란시아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을 향한 일반적 계획을 따랐더라면, 아담의 시대와 그리스도 미가엘의 증여 사이의 언젠가 치안법관 임무의 방문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행성에서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정규 순서는 1,900년 전에 그의 최종 증여로서 너희 창조자 아들이 출현함에 따라 전적으로 흐트러졌다.

20:4.5 (227.3) 유란시아는 치안법관의 임무를 띠고 육신화 하도록 위임받은 아보날의 방문을 아직 받을 수도 있지만,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장래 출현에 대하여,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러한 방문의 시기 또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미가엘-증여 세계는 주(主)아들의 개별적이고도 친히 돌보기 때문이며, 그러한 경우 그 자신의 계획과 통치에 전적으로 종속된다. 그리고 너희 세계의 경우에는, 이것은 미가엘이 돌아온다는 약속으로 더욱 복잡하게 되어 있다. 네바돈의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머무른 것과 관련된 오해와는 상관없이, 분명하게 진정한 한 가지 사실은—너희 세계에 돌아오겠다는 그의 약속이다. 이러한 전망에서 볼 때,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유란시아에 방문하는 앞날의 순서는 오직 시간만이 밝힐 수 있다.

제 5 장.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의 증여

20:5.1 (227.4) 영원한 아들은 영원한 하느님의 말씀이다. 영원한 아들은 그의 영원한 아버지의 “첫째” 절대적이고 무한한 생각의 완전한 표현이다. 이 기원 아들의 개인적 복제 또는 신성한 확장이신 분이 필사 육신화의 증여임무에 들어갈 때, 신성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동물 기원의 낮은 존재들 사이에서 거하였다 것이 글자 그대로 진리가 된다.

20:5.2 (227.5) 유란시아에서 아들의 증여의 목적이 어떤 방법으로 우주 아버지의 태도에 영향을 끼치려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너희의 깨우침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야만 한다. 아보날과 미가엘 아들의 증여들은 이 아들들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의 사람들과 행성들에 대한 안전하고도 동정적인 치안법관들 그리고 통치자들이 되게 하도록 계획된 체험적 진보의 필요한 일부분이다. 7중 증여의 생애는 모든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들의 최종 목표이다. 그리고 모든 치안법관 아들들은 1차 창조자 아들들 그리고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의 특징을 풍부하게 묘사하는 이 동일한 봉사의 영으로 동기를 부여받았다.

20:5.3 (227.6) 그 구체의 모든 일반적 인간 존재들의 마음에 생각 조절자들이 내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각 필사자-거주되는 세계에 파라다이스 아들의 어떤 계층이 증여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조절자들은 진리의 영이 모든 육신에게 부어질 때까지 모든 선의의 인간 존재들에게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리의 영의 파견은 진화하는 세계에 필사자 증여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파라다이스 아들이 우주 본부로 돌아오는 것에 따른다.

20:5.4 (228.1) 거주되는 행성의 긴 역사 과정 동안, 많은 섭리시대적 판결들이 일어날 것이며, 한 번 이상의 치안법관 임무가 발생하겠지만, 대개 오직 한 번만 증여 아들이 그 구체에서 봉사한다. 거주민이 사는 각 세계는, 탄생으로부터 죽음까지 충분한 필사자 삶을 살게 되는 한 명의 증여 아들을 갖는 것만이 요구된다. 조만간에, 영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모든 필사자-거주 세계는 각 지역우주 안에서 창조자 아들이 그의 필사자 증여를 하기로 선택한 하나의 행성을 제외하고는 증여 임무를 띤 치안법관 아들의 방문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

20:5.5 (228.2) 증여 아들들에 대하여 더 이해하게 되면, 너희는 네바돈의 역사 속에서 유란시아에 왜 그토록 흥미가 집중되는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작고 보잘 것 없는 행성이 지역우주의 관심인 것은 단순히 그것이 나사렛 예수의 필사자 고향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희 창조자 아들의 최종적이고도 승리에 넘친 증여의 장면, 미가엘이 네바돈 우주의 최극 개인적 주권을 얻은 장(場)이었다.

20:5.6 (228.3) 자신의 지역우주의 본부에서, 창조자 아들은, 특별히 그의 필사자 증여를 완성한 후에, 연관-동료 아들들, 치안법관 아들들 그리고 다른 존재들의 대학에서 조언을 하고 가르침을 주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사랑과 헌신함으로, 섬세한 자비와 애정 어린 동정심으로, 이 치안법관 아들들은 공간세계들에 그들을 증여한다. 그리고 이 행성 봉사들은 어떤 면에서도 미가엘들의 필사자 증여보다 열등하지 않다. 유별난 불운을 겪었던 한곳을 너희 창조자 아들이 창조체 체험에서 그의 최종적 모험 여행의 영역으로 선택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행성도 그것의 영적 부흥에 영향을 주도록 창조자 아들의 증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 속에 언제까지나 없을

것이다. 증여 집단의 어떤 아들도 동일하게 충족시킬 수 있었다. 왜냐하면 지역우주의 세계들에서의 그들의 모든 일에서 그 치안법관 아들들은 그들의 파라다이스 형제, 창조자 아들과 마찬가지로 신성하게 효력이 있고 모든 것에 지혜롭기 때문이다.

20:5.7 (228.4) 재난의 가능성이 이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증여의 육신화 기간 동안 그들에게 항상 수반되더라도, 나는 증여 임무를 띠고 있는 치안법관 또는 창조자 아들의 실패 또는 불이행에 관한 기록을 아직 본 적이 없다. 그 둘 모두는 기원에서 너무나 절대적 완전에 가까워서 실패할 수가 없다. 그들은 정말로 위험을 당한다, 실제로 살과 피를 가진 필사 창조체들과 비슷하게 되고 그리하여 독특한 창조체 체험을 가지지만, 내가 관찰한 범위에서는 그들이 항상 성공하였다. 그들은 증여 임무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네바돈에 두루 그들의 증여와 행성 봉사에 대한 이야기는 너희 지역우주의 역사 속에서 가장 고귀하고 매혹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제 6 장. 필사자-증여 생애

20:6.1 (228.5) 파라다이스 아들이 증여 아들로서 필사 육신화를 위해 준비되는, 그 증여 행성에서 어머니에게 태어나는 그 방법은, 하나의 우주적 신비이다; 이 아들별 기법의 작용을 감지하려는 어떤 노력도 확실하게 실패할 것이다. 나사렛 예수의 필사자 삶에 대한 숭고한 지식이 너희 혼속에 잠기게 하라, 그러나 네바돈의 미가엘의 이 신비로운 육신화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쓸모없는 깊은 사색에 사고력을 소모하지는 말라. 우리 모두는 그러한 업적들이 신성한 본성에게는 가능하다는 지식과 확신 속에 기쁨을 향유하고 그러한 현상을 가져온 신성한 지혜가 채택한 그 기법에 관해 쓸데없이 짐작하는 일에는 시간을 소모하지 말자.

20:6.2 (229.1) 필사자-증여 임무에서 파라다이스 아들은 예수가 유란시아에서 그러하였던 것과 같이, 항상 여인에게서 태어나고 그 영역의 남자아기로 자라난다. 최극 봉사의 이들 아들들 모두는 인간 존재가 이루는 것과 똑같이 유아기로부터 청년기를 거쳐 어른이 되어간다. 모든 면에서 그들은 그들이 소속되어 태어난 그 종족의 인간들을 닮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봉사하는 그 영역들의 자녀들이 하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탄원한다.

물질적 관점에서 볼 때, 이들 인간의-신성의 아들들은 오직 한 가지 예외를 가지고 평범한 삶을 산다: 그들은 그들이 머무는 그 세계들에서 자손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은 파라다이스 증여 아들들의 모든 계층들에게 부과된 우주적 제한이다.

20:6.3 (229.2) 예수가 너희 세계에서 목수의 아들로써 일하였던 것처럼, 다른 파라다이스 아들들도 그들의 증여 행성들에서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노동한다. 너희는 시간의 진화적 행성 중 어느 하나에서 그의 증여 기간 동안 어떤 파라다이스 아들이 가져보지 못한 직업에 대해 거의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20:6.4 (229.3) 증여 아들이 필사자 삶의 체험을 숙달하였을 때, 그가 자신의 내주하는 조절자와의 조율의 완전을 성취할 때, 거기에서 그는 육신의 그의 형제들의 혼들에 영감을 주고 마음을 밝혀주도록 계획된 그의 행성 임무의 부분을 시작한다. 교사들로서, 이 아들들은 자신들이 머무는 세계들의 필사 종족들의 영적 깨우침에 배타적으로 헌신한다.

20:6.5 (229.4)

미가엘들과 아보날들의 필사자-증여 생애들은, 대부분의 측면에서 비교될 만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치안법관 아들은 결코, 너희 창조자 아들이 육신으로 유란시아에서 했던 것처럼, "아들을 본 자는 누구든지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라고 선포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된 아보날은 "나를 본 자는 누구든지 이미 하느님의 영원한 아들을 보았다."라고 선언한다. 치안법관 아들들은 우주 아버지로부터 직접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육신화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항상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의 뜻에 따라 파라다이스 아들들로서 자신들을 증여한다.

20:6.6 (229.5)

증여 아들들, 창조자 또는 치안법관이 죽음의 입구에 도달하였을 때, 그들은 제3일에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너희는 1,900년 전에 너희 세계에 머물렀던 그 창조자 아들이 당했던 비극적인 종말을 그들이 항상 맞이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사렛 예수가 당하였던 색다르고 유별나게 잔인한 체험은 유란시아가 "십자가의 세계"로서 지역적으로 알려지게 하였다. 그러한 비인간적 취급이 하느님의 아들에게 주어질 필요는 없으며, 거의

대부분의 행성들은 사려 깊은 접수를 그들에게 잘 제공하여 왔으며, 그들에게 폭력적인 죽음을 부과하지 않고 그들의 필사자 생애를 완결하고, 그 시대를 종결하고, 잠자는 생존자들을 심판하고, 새로운 섭리시대를 시작하도록 하였다. 증여 아들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여야 하고, 영역들의 필사자들의 실재적 체험 전체를 통과해야만 하지만, 그 죽음이 폭력적이거나 비정상적이어야 하는 것은 신성한 계획의 요구조건이 아니다.

20:6.7 (229.6) 증여 아들들은 폭력으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죽음의 입구를 통과해 지나가는데, “엄격한 공의(公義)” 또는 “신성한 진노”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증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필사자 체험의 행성들에서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체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에서 육신화 생애와 개인적 체험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이다. 증여는 행성과 우주의 꼭 필요한 것이고, 물리적 죽음은 증여 임무의 필요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20:6.8 (230.1)

필사 육신화가 완결되어지면, 봉사하였던 그 아보날은 파라다이스로 가고, 우주 아버지에 의해 받아들여지며, 배정된 지역우주로 돌아가서, 창조자 아들에 의해 인정을 받는다. 그 때 그 증여 아보날과 창조자 아들은 그 증여 세계에서 거주하는 필사 종족들의 가슴속에서 기능하도록 그들의 공동 진리의 영을 보낸다. 지역우주가 주권을 갖기 이전의 시대들에는, 이것은 창조 영에 의해 충족된, 두 아들들 모두의 공동 영이다. 그것은 미가엘의 일곱 번째 증여에 뒤따르는 지역우주 시대를 특징짓는 진리의 영과는 조금 다르다.

20:6.9 (230.2)

창조자 아들의 최종적 증여가 완성되면 그 지역우주의 아보날-증여 세계들로 그 전에 보내진 진리의 영이 본질적으로 변하며, 더욱 확실한 주권자 미가엘의 영이 된다. 이 현상은 미가엘-필사자-증여 행성에서의 봉사를 위한 진리의 영의 해방과 동시에 발생한다. 그 후에, 치안법관의 증여로 인해 영광을 받은 각 세계는 그 치안법관 아들과 관계적-연합하여 칠중 창조자 아들로부터 동일한 영 위로자를 받아들리게 되는데, 그것은 그 증여 아들로서 개인적으로 육신화한 지역우주 주권자가 가졌었던 것을 받아들리게 되는 것이다.

제 7 장. 삼위일체 교사 아들

20:7.1 (230.3) 개인적으로 매우 높고 영적으로 매우 높은 이들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의해 존재로서 나아오게 된다. 그들은 하보나에서 데이날 계층으로 알려져 있다. 오르본톤에서는 그들이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혈통 때문에 그렇게 이름 지어졌다. 구원자별에서는 그들이 때로 파라다이스 영적 아들들로 명명되기도 한다.

20:7.2 (230.4) 교사 아들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우주 인구조사 방송에 의하면 중앙우주와 초우주에서 활동하는 이 삼위일체 아들들의 숫자는 210억 명보다 조금 많으며, 이것은 파라다이스 예비자들을 제외한 것인데, 그것은 실존하는 전체 삼위일체 교사 아들의 3분의 1이상을 포함한다.

20:7.3 (230.5) 아들관계의 데이날 계층은 지역우주 또는 초우주 관리-행정의 유기적인 일부분이 아니다. 그 구성원들은 창조자들 또는 회복자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심판관들 또는 통치자들도 아니다. 그들은 도덕적 깨우침과 영적 발전과 관계되는 만큼 그렇게 우주 관리-행정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우주 교육자들인데, 모든 영역들의 영적 각성과 도덕적 안내에 전념한다. 그들의 사명활동은 무한한 영의 개인성들의 그것과 긴밀하게 내적관계되어 있고 창조체 존재들의 파라다이스 상승과 가깝게 연관되어 있다.

20:7.4 (230.6) 삼위일체의 이들 아들들은 세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병합된 본성들을 갖고 있지만, 하보나에서는 그들이 우주 아버지의 본성을 더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우주들에서는 그들이 영원한 아들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지역 창조계에서는 그들이 무한한 영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우주들에서 그들은 봉사의 체현화이며 지혜의 재량이다.

20:7.5 (230.7) 그들의 파라다이스 형제인 미가엘들과 아보날들과는 달리,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중앙우주에서 어떤 예비 훈련도 받지 않는다. 그들은 초우주들의 본부로 직접 보내지고 거기에서 어떤 지역우주에서 봉사하도록 임명된다. 이 진화 영역들에 대한 그들의 사명활동에 있어서 그들은 창조자 아들과 연관된 치안법관 아들들의 병합된 영적 영향을

활용하는데, 왜냐하면 데이날들은 자체적으로 그리고 저절로 영적 흡인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 8 장. 데이날들의 지역우주 사명활동

20:8.1 (231.1) 파라다이스 영적 아들들은 독특한 삼위일체-기원 존재들이며 오직 유일한 삼위일체 창조체들만이 이원(二元)-기원 우주들의 처리행위와 매우 완벽하게 연관되게 되어 있다. 그들은 필사 창조체들과 영적 존재들의 비교적 낮은 존재들에 대한 교육적 사명활동에 애정을 다하여 헌신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지역체계에서 시작하며, 체험과 성취에 따라, 별자리 봉사를 통하여 지역 창조의 가장 높은 업무에 이르기까지 안쪽을 향하여 나아간다. 증명을 받게 되면 그들은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우주들을 대표하는 영적 대사(大使)들이 된다.

20:8.2 (231.2) 네바돈에 있는 교사 아들들의 정확한 숫자를 나는 알지 못한다; 수천 명의 그들이 있다. 멜기세덱 학교들에 있는 부서들의 우두머리들 중 많은 숫자가 이 계층에 속하는 반면, 정식으로 구성된 구원자별 대학의 병합된 참모진에는 이 아들들을 포함하여 100,000명 이상이 있다.

많은 숫자들이 다양한 모론시아-훈련 세계들에 머물고 있지만, 그들은 필사 창조체들의 영적 그리고 지적 증진에 전적으로 몰두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그 지역 창조계의 세라핌천사 존재들 그리고 다른 원주민들에 대한 훈련에도 똑같이 관여하고 있다. 그들의 보좌관들 대부분은 창조체-삼위일체화 존재들의 계급들로부터 소집되었다.

20:8.3 (231.3) 교사 아들들은 전초기지의 파수자들의 임무로부터 별 연구자들의 임무에 이르기까지, 우주 봉사의 모든 종속된 위상에서의 분별된-자격과 인증을 위하여 모든 검사를 운영하고 모든 시험을 수행하는 교수진을 구성한다. 그들은 행성 과정들로부터 구원자별의 고등 지혜 대학에 이르기까지, 긴 훈련 과정을 수행한다. 노력과 달성을 나타내는 승인이 모두에게, 지혜와 진리의 이 모험여행들을 완료한 상승하는 필사자 또는 열망하는 케루빔들에게 수여된다.

20:8.4 (231.4) 모든 우주들에서 하느님의 아들들 모두는 항상-충실하고 우주적으로 유능한 이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 그들은 모든 영 개인성들,

심지어는 하느님의 아들들 자신의 믿을만하고 참된 교사들에 대한 고귀한 선생들이다. 그러나 교사 아들들의 임무들과 기능들에 대한 끝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수 없다. 데이날-아들관계 활동들의 광대한 권역은 너희가 지능적으로 더 진보할 때, 그리고 너희 행성의 영적 고립이 종료된 후에 유란시아에 더 잘 알려지게 될 것이다.

제 9 장. 데이날들의 행성 봉사

20:9.1 (231.5) 진화세계에서의 사건들의 진보가 영적 시대를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나타낼 때,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이 항상 이 봉사에 자발적으로 나선다. 너희는 아들관계의 이 계층에 대해 잘 모를 것인데 왜냐하면 유란시아는 영적 시대, 조화우주 깨우침의 1,000년 기간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 아들들은 너희 구체에 구체적으로 투사된 그들의 체재와 관련되는 정형화된 계획을 목적으로 너희 세계를 지금이라 하더라도 방문하고 있다. 그들은 유란시아에 이곳 거주민들이 물질주의의 족쇄로부터 그리고 동물주의의 속박으로부터 상당한 해방을 이룬 후에 마땅히 나타날 것이다.

20:9.2 (231.6)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행성 섭리시대의 종결에 대해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 그들은 죽은 자들을 심판하지도 않으며 산 자들을 옮기지도 않지만, 각각의 행성 임무 때마다 그들은 이 봉사들을 수행할 치안법관 아들을 동반한다. 교사 아들들은 진화 행성에서 영적 실체들의 여명기가 도달하면, 영적 시대의 시작에 전적으로 관여한다. 그들은 물질적 지식과 임시적 지혜에 대한 영적 상대자들을 실제화시킨다.

20:9.3 (232.1) 교사 아들들은 그들의 방문 행성들에 행성 시간으로 1,000년 동안 머문다. 한 명의 교사 아들이 행성의 1,000년 통치권을 행사하고 그의 계층에 속하는 70명의 동료들의 도움을 받는다. 데이날들은 필사 존재들이 볼 수 있도록 자신들을 육신화하거나 아니면 물질화 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사 아들과 연관하는 지역우주 개인성들이 찬란한 저녁별들의 활동들을 통하여 방문하는 세계들과 접촉이 지속된다.

20:9.4 (232.2) 데이날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 여러 번 돌아올 수 있으며, 그들의 마지막 임무 이후에 그 행성은 빛과 생명의 구체의 정착된 지위, 현재 우주 시대의 필사자-

거주되는 세계들 전체의 진화적 목표로 안내될 것이다. 최종의 필사자 무리단은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된 구체들과 할 일이 많으며, 그들의 행성 활동들은 교사 아들들의 그것들을 암시한다. 정말로 데이날 아들관계의 전체 계층은 시간과 공간의 진화 창조계에서의 최종자 활동의 모든 위상들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20:9.5 (232.3)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우리가 종종 미래 우주들의 계시되지 않은 생애의 최종자와 그들의 가능한 관계적-연합에 대하여 추측하도록 이끄는, 진화하는 상승의 비교적 초기 단계들을 통한 필사자 진보의 체제와 매우 완벽하게 정체성이 확인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초우주들의 행정-관리자들이 일부는 삼위일체-기원 개인성들이고 일부는 삼위일체에-포용된 상승하는 진화적 창조체들인 것을 관찰한다. 우리는 어떤 계시되지 않은 미래 운명에서 긴밀한 관계적-연합을 그들에게 준비시키는 예비 훈련이 될 수 있는 시간-관계적-연합의 체험을 얻는 일에 삼위일체 아들과 최종자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 유버사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초우주들이 최종적으로 빛과 생명에 정착할 때, 진화 필사자들의 삶과 그토록 오래 연관되어 왔고 그리고 진화

세계들의 문제들과 매우 철저하게 친숙해진 이
파라다이스 교사 아들들이, 아마 최종의 파라다이스
무리단과 영원한 관계적-연합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이다.

제 10 장.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연합된 사명활동

20:10.1 (232.4)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 전체는 기원에서
그리고 본성에서 신성하다. 각 세계를 위한 각 파라다이스
아들의 업무는 마치 봉사하는 아들이 바로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한 하느님의 아들인 것처럼 같다.

20:10.2 (232.5)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시간과 공간의 권역들에
신(神)의 세 개인들의 대리 본성들에 의한 신성한
표현이다. 창조자, 치안법관, 그리고 교사 아들들은 상승
잠재를 갖는 사람의 자손들 그리고 다른 우주 전체
창조체들에 대한 영원한 신(神)들의 선물들이다. 이
하느님의 아들들은 영원의 높은 영적 목표를 달성하는
시간의 창조체들을 돕는 역할에 끊임없이 헌신된 신성한
사명활동자들이다.

20:10.3 (232.6) 창조자 아들들에서 우주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한
아들의 자비와 혼합되고 미가엘들의 창조적 힘과 사랑

넘치는 사명활동 그리고 이해심이 많은 주권으로 지역우주들에게 계시된다. 치안법관 아들들에서 무한한 영의 사명활동과 연합된 영원한 아들의 자비는 심판, 봉사 그리고 증여의 이 아보날들의 생애들에서 진화적 권역들에게 계시된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에서, 세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사랑과 자비와 사명활동은 가장 높은 시간-공간 가치-차원들에서 조화-협동을 이루며 살아있는 진리와 신성한 선(善) 그리고 참된 영적(靈的) 아름다움으로서 우주들에게 제시된다.

20:10.4 (233.1) 지역우주들에서 아들관계의 이 계층들은 공간의 창조체들에게 파라다이스의 신(神)들의 계시의 영향을 끼치도록 협동한다: 지역우주 아버지로서, 창조자 아들은 우주 아버지의 무한 성격을 묘사한다. 자비의 증여 아들로서, 아보날들은 무한한 연민을 가진 영원한 아들의 비길 데 없는 본성을 계시한다. 상승하는 개인성들의 참된 선생들로서, 삼위일체 데이날 아들들은 무한한 영의 교사 개인성을 계시한다. 그들의 신성하게 완전한 협동으로, 미가엘들과 아보날들과 데이날들은 시간-공간 우주들 안에서 그리고 그것들에게 최극자 하느님의 개인성과 주권의 실재화구현 그리고 계시에 기여하고 있다. 그들의

삼원적 활동들의 조화로, 파라다이스의 영속하는 섬으로부터 미지의 공간 심연 속으로 위대한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신성의 끝없는 확대를 그들이 따라가며 하느님의 이 세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신(神)의 개인성들의 선봉으로서 항상 기능한다.

20:10.5 (233.2) [유버사로부터 온 지혜의 완전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21 편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

21:0.1 (234.1) 창조자 아들들은 시간과 공간의 지역우주들을 만드는 자들이며 통치자들이다. 이들 우주 창조자이고 주권자는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하느님의 특징들을 체현하는 이원적(二元的) 기원을 갖는다. 그러나 각 창조자 아들은 서로 다르며; 각각은 본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개인성에 있어서 독특하며; 각각은 그가 기원된 완전한 신(神) 이상의 “오직 하나 낳은 아들”이다.

21:0.2 (234.2) 지역우주를 조직하고, 진화시키고, 그리고 완전케 하는 광대한 작업에 있어서, 이 높은 아들들은 우주 아버지의 지속적 승인을 항상 받는다. 창조자 아들과 그들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와의 관계는 감동적인 동시에

최상급 것이다. 자신들의 신성한 자손을 향한 신(神) 부모들의 심오한 애정은 필사자 부모들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품게 하는 아름답고 거의 신성한 그 사랑의 원천이다.

21:0.3 (234.3) 이 1차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미가엘들로서 개인성구현된다. 그들이 그들의 우주들을 설립하려고 파라다이스로부터 나아갈 때, 그들은 창조자 미가엘들로서 알려진다. 최극 권한에 안정하면, 그들은 주(主)미가엘들이라고 불린다. 때로는 우리가 네바돈의 너희 우주의 주권자를 그리스도 미가엘이라고 언급한다. 그들은 항상 그리고 언제까지나 그들의 계층과 본성에서의 첫 번째 아들을 정의하는 존재인 “미가엘의 명령”에 따라 통치한다.

21:0.4 (234.4) 기원적 또는 첫째-탄생 미가엘은 물질적 존재로서의 육신화를 결코 체험한 적이 없지만, 외부 구체들로부터 중앙 창조의 가장 안쪽에 있는 순환회로로 나아가면서, 하보나의 일곱 순환회로들에서 상승하는 영적 창조체의 체험을 그는 일곱 번에 걸쳐 다 통과하였다. 미가엘의 계층은 대우주의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쪽

끝까지 다 알며; 미가엘이 개인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시간과 공간의 어떤 자녀들의 필수적 체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실상 신성한 본성뿐만 아니라 너희 본성에도, 다시 말해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모든 본성에 참여자들이다

21:0.5 (234.5) 기원적 미가엘은 1차 파라다이스 아들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서 회의를 하기 위해 모였을 때 그들을 주재하는 우두머리이다. 이 우주들의 우주의 통일과 안정의 진보에 관한 토의들에 참여하고 어버이로서의 현존으로 모인 15만 명의 창조자 아들이 영원한 섬에서 열린 임시 비밀회의에 대한 우주적 방송을 얼마 전에 우리가 유버사에 기록하였다. 이것은 주권자 미가엘들, 칠중 증여 아들의 선택된 집단이었다.

제 1 장. 창조자 아들의 기원과 본성

21:1.1 (234.6) 영원한 아들의 절대적인 영적 관념화 작용의 충만함이 우주 아버지의 절대적 개인성 개념의 충만함과 만날 때, 그러한 창조적 연합이 최종적으로 그리고 충만하게 달성될 때, 영의 그러한 절대 정체성과 개인성 개념의 그러한 무한한 하나 됨이 발생할 때, 바로 그 때

그리고 거기에서, 개인성의 어느 것도 또는 어느 하나의 특권도 잃어버리지 않고, 충만하게-성장 존재인 새롭고도 기원적인 창조자 아들로, 그들의 연합이 힘과 완전함을 지닌 이 새로운 창조자 개인성을 만들어내는, 완전한 이상과 힘이 넘치는 관념의 오직-하나 낳은 아들이 번쩍 나타난다.

21:1.2 (235.1) 각각의 창조자 아들은 우주들의 우주의 항상-실존하는 창조자들의 무한하고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두 마음들의 기원적 개념의 완전한 연합으로 오직하나 낳은 그리고 오직하나 낳을 자손이다. 다르게는 그러한 아들이 전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각 창조자 아들은, 모든 영원에 두루, 이 미가엘 아들이 실존하도록 연합된 그 신성한 창조적 잠재들에서 발견될 수 있고, 그것에 의해 표현될 수 있고, 또는 그것으로부터 진화될 수 있는, 모든 신성한 실체의 모든 가능성의 모든 특성의 모든 단계 전체에 대한 분별불가적이고, 완결되고, 최종적인 표현이며, 그리고 체현달성이기 때문이다. 각 창조자 아들은 그의 신성한 기원을 구성하는 연합된 신(神) 개념들의 절대이다.

21:1.3 (235.2) 이들 창조자 아들들의 신성한 본성들은, 원칙적으로, 두 파라다이스 부모들의 속성들로부터 똑같이 도출되었다. 우주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의 그리고 영원한 아들의 창조적 특권들의 총만함을 모두 띠고 있다, 그러나 우주들에서 미가엘 기능들의 실천적 작업을 우리가 관찰할 때, 우리는 분명한 차이를 식별한다. 어떤 창조자 아들들은 아버지 하느님과 더욱 비슷한 듯 하며; 다른 이들은 아들 하느님과 더 비슷하다. 예를 들면: 네바돈 우주에서의 관리-행정 방향은 그것의 창조자와 통치하는 아들이 영원한 어머니 아들의 본성과 성격을 더욱 닮았음을 시사한다. 어떤 우주들은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하느님을 똑같이 닮는 듯한 파라다이스 미가엘들에 의해 주재되고 있음을 덧붙여 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관찰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비판들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단지 사실의 기록이다.

21:1.4 (235.3) 나는 실존하는 창조자 아들들의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하지만, 700,000명 이상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들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는 정확하게 700,000명의 연합으로 늘 계신이가 있고 더 이상 창조되지 않고 있음을 안다. 또한 우리는 현재 우주 시대의

운명된 계획들이 한 명의 연합으로 늘 계신이가 삼위일체의 조언하는 대사로서 각 지역우주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음을 관찰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창조자 아들들의 계속 증가하는 숫자가 연합으로 늘 계신이의 고정된 숫자를 이미 넘어서고 있음을 더욱 주목한다. 그러나 700,000명 이상의 미가엘들의 운명에 관해서는, 우리가 전혀 들은 바가 없다.

제 2 장. 지역우주들의 창조자

21:2.1 (235.4) 1차 계층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그들 각각의 권역들, 시간과 공간의 지역우주들, 진화적인 일곱 초우주들의 기본적인 창조적 단위들의 설계자들, 창조자들, 건축자들, 그리고 관리행정자들이다. 창조자 아들은 그의 미래 우주 활동의 공간 위치를 선택하도록 허락을 받았지만, 그가 비록 그의 우주의 물리적 조직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그의 구체적으로 투사된 활동의 초우주에 위치한 다양한 창조계에서 그보다 나이 많은 형제들의 노력에 대한 연구에 골몰한 관찰의 긴 기간을 보내야만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이전에, 미가엘 아들은 파라다이스 관찰과 하보나 훈련의 길고도 독특한 그의 체험을 완료하게 될 것이다.

21:2.2 (235.5) 창조자 아들이 우주 조성의 모험여행을 시작하기 위해, 그 자신의 조직인 지역우주의—실질적인 하느님—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파라다이스로부터 출발할 때, 첫 번째로, 그는 셋째근원이며 중심과 긴밀하게 접촉하는 그리고 여러 면에서 그에게 의존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무한한 영은, 모든 것들의 중심에서 아버지 및 아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창조자 아들의 실재적이고 효력적인 조력자로서 기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창조자 아들은 무한한 영의 창조 딸을 동반하며, 그녀는 신성한 사명활동자, 새로운 그 지역우주의 어머니 영이 되게 되어 있다.

21:2.3 (236.1) 이 경우에 미가엘 아들의 출발은 그의 창조자 특권들을 파라다이스 근원이며 중심으로부터 언제까지나 해방시킨다, 단지 이들 근원이며 중심의 선재(先在) 안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는 어떤 한계들에 대해서 그리고 선행된 다른 힘들과 현존들에 따라야만 하는 것이 전제된다. 다른 모든 면에서는 만능인 지역우주의 아버지의 창조자 특권들 중에서, 이들 한계들은 다음과 같다:

21:2.4 (236.2)

1. 에너지-물질은 무한한 영에 의해 지배된다. 크든지 작든지, 어떤 새로운 것의 형태들이 창조되기 전에, 에너지-물질의 새로운 어떤 변환들이든지 시도되기 전에, 창조자 아들은 무한한 영의 승낙과 그리고 실용적인 협동을 획득해야만 한다.

21:2.5 (236.3)

2. 창조체 설계들 및 유형들은 영원한 아들에 의해 통제된다. 창조자 아들이 어떤 새로운 존재 유형의, 어떤 새로운 창조체 설계의 창조에 참여하기 전에, 그는 반드시 영원이며 근원인 어머니 아들의 허락을 획득해야만 한다.

21:2.6 (236.4)

3. 개인성은 우주 아버지에 의해 설계되고 증여된다.

21:2.7 (236.5)

마음의 유형들과 원형틀들은 존재의 창조체-이전(以前) 요소들로 결정된다. 마음은 창조체를(개인적이건 또는 아니건) 구성하도록 연관되어진 이후에, 셋째근원이며 중심이 부여한 자질이며, 파라다이스 창조자들의 차원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대한 마음 사명활동의 우주 근원이다.

21:2.8 (236.6)

영 설계들 및 유형에서의 통제는 그들의 현시활동의 차원에 달려 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영적 설계는 삼위일체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또는 삼위일체 개인성들—아버지, 아들, 영—의 이전-삼위일체 영 자질들에 의해서 통제된다.

21:2.9 (236.7)

그러한 완전하고 신성한 아들이 그가 선택한 우주의 공간 부지의 소유를 확보하였을 때; 우주 물질화 작용의 초기 문제와 그리고 총체적 평형의 초기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보완적인 무한한 영의 딸과 효력적이고 조화로운 작업 연합을 형성하였을 때—그 때에 이 우주 아들과 이 우주 영은 그들의 지역우주 자녀들의 수많은 무리들을 창조하도록 고안된 그 연락을 시작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파라다이스 무한한 영의 창조 영 초점화구현은 본질적으로 변하여, 지역우주의 어머니 영의 개인적 본질특성들을 나타낸다.

21:2.10 (236.8)

모든 창조자 아들들이 신성하게 그들의 파라다이스 부모들을 닮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서로 똑같이 닮지는 않았다; 각자는 본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개인성에서도 독특하고 다양하며 독점적이고

기원적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 각각의 권역들의 생명 계획에서의 고안건축자들이며 만드는 자임으로, 바로 이 다양성이 그들의 권역이 미가엘에서-파생되는, 창조되거나 나중에 그곳에서 진화되는 그러한 살아있는 실존의 모든 형태와 위상으로 또한 다양하게 되는 것을 보장한다. 따라서 지역우주들 태생의 창조체 계층들은 매우 다채롭다. 어떤 두 곳도, 모든 면에서 똑같은 이원(二元)-기원 토착 존재들에 의해 관리-운영되거나 거주되지 않는다. 어떤 초우주 안에서도, 그들의 선천적인 속성들 중 한쪽 절반은, 한결같은 창조 영들로부터 기인되기 때문에 매우 비슷하며; 다른 절반은, 다양한 창조자 아들들로부터 기인되며 서로 다르다. 한편 그러한 다양성은 오로지 창조 영에서 기원된 창조체나, 또는 중앙우주 및 초우주 토착 존재인 저들 수입된 존재들의 특성은 아니다.

21:2.11 (237.1) 미가엘 아들이 그의 우주를 비울 때, 그 정부는 첫-태생 토착 존재, 지역우주 집행자 우두머리인 빛나는 새벽별의 지도를 받는다. 연합으로 늘 계신이의 충고와 조언은 그러한 때에 매우 귀한 것이다. 자리를 비운 이 기간 동안, 창조자 아들은 그의 필사 자녀들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 그의 영적 현존의 전반적-통제권을 연관된 어머니 영에게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우주의 어머니 영은, 그러한 진화적 권역의 가장 멀리까지 그녀의 양육하는 보살핌과 영적(靈的) 사명활동을 확장하면서, 항상 그 본부에 남아 있다.

21:2.12 (237.2) 확립된 물질적 창조계의 순조로운 운행하기 위해 창조자 아들이, 자신의 지역우주 안에 개인적 현존으로 꼭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아들들은 파라다이스로 여행해도 좋고, 그래도 여전히 그들의 우주들은 공간에 두루 휘돌아 회전한다. 그들은 시간의 자녀들로서 육신화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일련의 힘들을 내려놓아도 좋다; 그래도 여전히 그들의 영역들은 그들 각각의 중심 주위를 빙빙돈다. 어떤 물질적 조직도 파라다이스의 절대-중력 지배에 또는 분별불가 절대자의 공간 현존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는 조화우주 전반적-통제에서 독립할 수가 없다.

제 3 장. 지역우주 주권

21:3.1 (237.3) 창조자 아들에게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동의에 의해서 그리고 관련된 초우주의 감독하는 주(主)

영의 확인에 따라 우주의 범위가 주어진다. 그러한 조치는 물리적 소유권, 우주적 임차권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 최초의 그리고 자아-제한된 통치 자격 단계로부터 자아-획득한 주권의 체험적 최극위로 미가엘 아들의 상승은 우주 창조의 작업과 육신화 증여에서 그 자신의 직접적 체험들의 결과에서 온다. 증여-획득 주권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우주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통치한다.

21:3.2 (237.4) 창조자 아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적 창조에 대한 충분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현명하게 선택한다. 만일, 창조체 증여들을 통과하기 이전에, 그가 획득되지 않은 최극 주권을 행사한다면, 그의 지역우주에 거주하는 파라다이스 개인성들이 떠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시간과 공간의 모든 창조계 안에서 일어난 적이 없다.

21:3.3 (237.5) 창조자 관계의 사실성은 주권의 충만함을 의미하지만, 미가엘들은 체험적으로 그것을 획득하기를 선택하며, 그리하여 지역우주 관리-행정에 배속된 모든 파라다이스 개인성들의 충분한 협조를 얻는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했던 어떤 미가엘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들은 참으로
자유의지의 아들들이다.

21:3.4 (237.6) 지역우주에서의 창조자 아들의 주권은 체험적
현시활동의 여섯 혹은 일곱 단계들을 지나간다. 이것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타난다:

21:3.5 (237.7) 1. 최초의 대리 주권—연관된 창조 영에 의한
개인적 본질특성 취득 이전에 창조자 아들에 의해
행사되는 독자적인 잠정적 권한.

21:3.6 (237.8) 2. 공동 대리 주권—우주 어머니 영의 개인성
성취에 수반하는 파라다이스 쌍의 공동 통치.

21:3.7 (238.1) 3. 증강하는 대리 주권—창조자 아들의 일곱 번의
창조체 증여들의 기간 동안 향상되는 권한.

21:3.8 (238.2) 4. 최극 주권—일곱 번째 증여의 완성에 따르는
정착된 권한. 네바돈에서는, 최극 주권이 유란시아에서의
미가엘의 증여가 완성된 날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이
존재한 지 너희 행성 시간으로 1,900년이 조금 넘었다.

21:3.9 (238.3) 5. 증강하는 최극 주권—창조체 영역들의 대부분이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됨으로부터 성장하는 향상된 관계. 이 단계는 너희 지역우주의 성취되지 않은 미래에 속한다.

21:3.10 (238.4) 6. 삼위일체로서의 주권—전체 지역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됨에 수반하여 행사된다.

21:3.11 (238.5) 7. 계시되지 않은 주권—미래 우주 시대의 알려지지 않은 관계.

21:3.12 (238.6) 구체적으로 투사된 지역우주의 최초 대리 주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창조자 미가엘은 일곱 번의 창조체 증여들이 완성되고 그리고 초우주 통치자들에 의해 공인될 때까지 최극 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삼위일체에게 맹세한다. 그러나 만일 미가엘 아들이 의지적으로 그러한 획득되지 않은 주권을 행사 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21:3.13 (238.7) 심지어 증여-이전(以前)의 시대에도, 창조자 아들은 그의 권역의 어떤 부분에서도 이의가 없을 때 거의

최극으로 그의 영역을 통치한다. 제한된 지배권은 주권이 도전을 받지 않았다면 거의 현시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반역이 없는 우주 안에서 창조자 아들에 의해 행사되는 주권은 반역이 있는 우주보다 더 크지 못하다; 처음 단계에서는 주권 제한들이 명백하지 않지만; 두 번째에는 그것들은 명백하다.

21:3.14 (238.8) 만일 창조자 아들의 권한 또는 관리-행정이 언제든지 도전을 받거나 공격을 받거나 또는 위태롭게 된다면, 그는 유지하고 보호하며 방어하기 위하여 영원히 서약되며, 그리고 만일 필요하다면 그의 개인적 창조를 끄집어내어 회복한다. 그러한 아들들은 그들 자신이 만든 창조체들에 의해서 또는 그들 자신이 선택한 비교적 높은 존재들에 의해서만 교란되고 시달림을 받을 수 있다. “더 높은 존재들”, 지역우주 위에 있는 차원들에서 기원된 그들이 창조자 아들을 교란시키지 않으리라는 것은 추측이 가능하며, 또 그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다면 할 수 있다. 덕행은 개인성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정의(正義)는 자유의지 창조체에게 자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21:3.15 (238.9) 증여 생애의 완성 전에 창조자 아들은 주권에 자아-부과된 제한들을 가지고 통치하지만, 그의 증여 봉사를 끝마친 후에는 그의 여러 창조체들의 형태로 그리고 비슷한 모습으로 가졌던 그의 실재적 체험에 의해 다스린다. 창조자 아들이 자신의 창조체들 가운데에서 일곱 번 머물렀을 때, 증여 생애가 완결되어졌을 때, 그때에 그는 우주 권한에 최극으로 정착하며; 그는 주(主)아들, 주권적 그리고 최극 통치자가 된다.

21:3.16 (238.10) 지역우주에 대한 최극 주권을 획득하는 기법에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체험적 단계들이 포함된다:

21:3.17 (238.11) 1. 관련된 차원에서 창조체들과 매우 흡사한 모습으로 육신화 증여되는 기법을 통하여 일곱 창조체 존재 차원들을 체험적으로 통과함.

21:3.18 (238.12) 2. 그것이 일곱 주(主) 영들 안에서 개인화되는 것처럼 파라다이스 신(神)의 칠중 의지의 각 위상에 대해 체험적 헌신을 이룩함.

21:3.19 (239.1) 3. 파라다이스 신(神)의 의지에 대한 일곱 번의
헌신들 중 하나의 실행과 동시에 창조체 차원들에서
일곱 체험들 각각을 지나감.

21:3.20 (239.2) 4. 각 창조체 차원에서, 파라다이스 신(神)에게
그리고 모든 우주 지능체들에게 창조체 삶의 절정을
체험적으로 나타냄.

21:3.21 (239.3) 5. 각 창조체 차원에서, 증여 차원에게 그리고 모든
우주에 신(神)의 칠중 의지의 한 위상을 체험적으로
계시함.

21:3.22 (239.4) 6. 신(神)의 본성 그리고 의지의 계시에 대한
헌신의 칠중 체험과 칠중 창조체 체험을 체험적으로
통합시킴.

21:3.23 (239.5) 7. 최극존재와의 새롭고도 더 높은 관계를 성취함.
이 창조자-창조체 체험의 전체성에 대한 반향은 최극자
하느님의 초우주 실체와 전능 최극자의 시간-공간 주권을
증강시키고 파라다이스 미가엘의 최극 지역우주 주권을
사실화시킨다.

21:3.24 (239.6) 지역우주에서 주권에 대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창조자 아들은 통치에 대한 자신의 적합성을 실증할 뿐만 아니라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칠중 태도를 묘사하고 본성을 계시하기도 한다. 아버지의 시원성에 대한 유한 납득과 창조체 인식은 그의 창조체들의 형태와 체험들 그 자신이 체험하려고 그가 자신을 낮추었을 때의 창조자 아들의 모험에 관계된다. 이 1차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본성과 인정 많은 권한에 대한 실제적인 계시자들이며, 바로 그 아버지는, 아들 그리고 영의 관계적-연합으로, 모든 우주 영역들에 두루 모든 힘, 개인성, 그리고 정부의 전반적인 우두머리이다.

제 4 장. 미가엘 증여

21:4.1 (239.7) 증여 창조자 아들들에는 일곱 집단들이 있으며, 그들은 그들이 자신의 영역의 창조체들에게 스스로를 증여하였던 횟수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된다. 그 범위는 최초 체험으로부터 다섯 번의 추가적인 진보적 증여 구체들을 거쳐 창조체-창조자 체험의 일곱 번째 그리고 최종 에피소드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21:4.2 (239.8) 아보날 증여들은 항상 필사 육신과 비슷하지만, 창조자 아들의 일곱 증여들은 존재의 일곱 창조체 차원들에게 그의 나타남을 포함하고 신(神)의 뜻과 본성의 1차 일곱 표현들에 대한 계시에 관계된다. 예외 없이, 모든 창조자 아들들은 그들 자신의 창조의 우주들에 대한 완결되고 최종 관할권을 그들이 맡기 전에 그들의 창조된 자녀들에게 스스로를 이렇게 일곱 번 내어줄을 체험한다.

21:4.3 (239.9) 비록 이 일곱 번의 증여들이 다른 구역들과 우주들에서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은 항상 필사자-증여 모험을 포용한다. 최종적 증여의 경우에 창조자 아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서 더 높은 필사 종족들 중 하나의 일원, 대개는 동물-기원 민족들의 물리적 지위를 올려주기 위하여 그 전에 부여되었던 아담의-혈통을 가장 많이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 종족 집단의 일원으로 나타난다. 증여 아들로서의 일곱 번의 생애들 중 오직 한번만, 파라다이스 미가엘은 너희가 베들레헴의 아기에 관한 기록을 가진 것처럼 여인으로부터 태어난다. 그는 오직 한번 진화적 창조체들의 가장 낮은 계층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죽는다.

21:4.4 (239.10) 각각의 그의 증여들 이후에 창조자 아들은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나아가며, 거기에서 증여에 대한 아버지의 수락을 얻기 위해서이고 우주 봉사의 다음 에피소드를 준비하는 지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이다. 일곱 번째 및 최종적 증여 이후에, 창조자 아들은 우주 아버지로부터 그의 우주에 대한 최극 권한과 관할권을 받아들인다.

21:4.5 (240.1) 기록에 의하면, 너희 행성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그 신성한 아들은 자신의 증여 생애의 여섯 위상들을 이미 마쳤던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이었다. 따라서 그가 유란시아에서의 육신화 삶에 대한 의식의 끈을 놓았을 때, 그는 “이제 완결되었다”라고 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였다.-그것은 말 그대로 완결되었다. 유란시아에서의 그의 죽음은 그의 증여 생애를 완성시켰으며; 그것은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의 신성한 맹세를 완수하는 마지막 단계였다. 그리고 이 체험이 획득되었을 때, 그러한 아들들은 최극 우주 주권자들이다.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통치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권한과 이름으로 “왕들의 왕이요 주님들의 주님”으로서 통치한다. 명시된 어떤 예외들을 제외하고, 이 칠중 증여 아들들은

그들이 거하는 우주들에서 분별불가하게 최극이다. 그의 지역우주에 관하여, “하늘에서와 땅에서의 모든 힘”이, 승리하고 왕관을 쓴 주(主)아들에게 수여되었다.

21:4.6 (240.2) 창조자 아들들은, 그들의 증여 생애들을 완성한 후에, 별도의 계층. 칠중 주(主)아들들로서 간주된다. 개인으로서 주(主)아들들은 창조자 아들과 똑같지만, 그들은 독특한 증여 체험을 겪었음으로 일반적으로 다른 계층으로 간주된다. 창조자가 증여의 효력을 나타내려고 설계할 때, 실제적이고 영구한 변화가 운명되어진다. 정말로, 증여 아들은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창조자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본성에, 그를 창조자 아들의 신성한 차원에서 언제까지나 옮기어 우주를 통치하고 그것에 속한 세계들을 관리-운영하는 권한을 충만하게 획득한, 주(主)아들의 체험적 경지로 그를 올려주는, 창조체 체험을 추가하였다. 그러한 존재들은 신성한 가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체현하고 완전하게 된-창조체 체험으로부터 도출된 모든 것을 포용한다. 바로 하느님들도 그들의 우주 권역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충만하게 다스리기에 체험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그럴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합당한 체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사람이 왜 그의 낮은 기원과 강요된 진화적 생애를 슬퍼해야 한단 말인가!

제 5 장. 우주에 대한 주(主)아들들의 관계

21:5.1 (240.3) 주(主)미가엘의 힘이 무제한적인 것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의 체험된 관계적-연합으로부터 기인되었기 때문이며, 이의가 제기될 수 없는 것은 그러한 권한에 복종하는 바로 그 창조체들로서의 실재적 체험으로부터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칠중 창조자 아들의 주권의 본질은 최극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21:5.2 (240.4) 1. 파라다이스 신(神)의 칠중 관점을 포용하고.

21:5.3 (240.5) 2. 시간-공간 창조체들의 칠중 태도를 구체화시키며.

21:5.4 (240.6) 3. 파라다이스 태도와 창조체 관점을 완전하게 합성하기 때문이다.

21:5.5 (240.7) 그래서 이 체험적 주권은 최극존재 안에서 절정에 달하는 칠중 하느님의 신성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칠중 아들의 개인적 주권은 언젠가-완성될 최극존재의 미래 주권과 비슷하며, 그것이 이루는 관련된 시간-공간 한계들

안에서 현시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힘과 권한의 가장 충만하게 가능한 만족을 포함한다.

21:5.6 (240.8) 지역우주 최극 주권을 성취로, 현재 우주 시대 동안 창조체 존재들의 모든 새로운 유형들을 창조할 수 있는 힘과 기회가 미가엘 아들로부터 사라진다. 그러나 주(主)아들의 전적으로 새로운 계층의 존재들을 창조하는 힘의 상실이 이미 확립된 그리고 나타나는 과정에 있는 생명 정밀화의 작업과 어떤 면에서도 충돌되지 않는다; 우주 진화의 이 광대한 계획은 중단 또는 축소 없이 계속된다. 주(主)아들에 의한 최극 주권의 획득은, 이미 계획되고 창조된 것에 대한, 그리고 그렇게 고안되고 창조된 것들에 의해 나중에 산출될 것에 대한 육성과 관리-행정에 개인적인 헌신의 책임을 의미한다. 때가 되면 다양한 존재들의 거의 끝없는 진화가 발달하겠지만, 그 후로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원형들이나 유형의 지능 창조체는 주(主)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기원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지역우주든지 그 안에 정착된 관리-행정의 첫 발걸음, 시작이다.

21:5.7 (241.1)

칠중 증여 아들이 그의 우주에 대한 명백한 주권으로의 상승은 긴 세월의 불확실성과 상대적 혼란의 종말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 사건 이후에, 언젠가 영성화 될 수 없는 것은 결국에는 분해 될 것이다; 조화우주 실체와 언젠가 조화-협동을 이룰 수 없는 것은 결국에는 파괴될 것이다. 영역들의 의지적 창조체들의 충성과 헌신을 얻고자 노력으로, 끝없는 자비와 형언할 수 없는 인내의 공급들이 소진되었을 때, 공의와 정의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자비가 복구시킬 수 없는 그것을 공의(公義)가 결국에는 절멸시킬 것이다.

21:5.8 (241.2)

주 미가엘들은 그들이 일단 주권 통치자들로써 세워진 후에는 그들 자신의 지역우주들에서 최극이다. 그들의 통치에 대한 약간의 제한들은 어떤 기세들과 개인성들의 조화우주 선재에 선천적으로 들어있는 것들이다. 그 외에 이 주(主)아들들은 그들 각자의 우주들에서 권한과 책임과 행정-관리적 힘에 있어서 최극이다; 그들은 창조자들이며 하느님들이다. 모든 것들에서 실질적으로 최극이다. 주어진 어떤 우주의 기능에 관한 그들의 지혜를 넘어서는 통찰력이 있을 수 없다.

21:5.9 (241.3) 지역우주에서 정착된 주권으로 상승된 후에
파라다이스 미가엘은 그의 권역 안에서 기능하는 다른
모든 하느님의 아들들에 대해 충만하게 통제하며, 그는
그의 영역들의 필요에 대한 그의 개념에 따라 자유롭게
통치한다. 주(主)아들은 거주민이 사는 행성들의 영적
판결과 진화적 조절의 질서를 의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아들들은 행성의 특별한 필요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특히 그들이 창조체로 머물렀던 세계들에
관하여, 그리고 더군다나 최종적 증여의 영역,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화한 그 행성에 대하여, 자신이 선택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한다.

21:5.10 (241.4) 주(主)아들들은 그들의 증여 세계들, 그들이 직접
머물렀던 세계들뿐만 아니라 치안법관 아들이 자신을
증여하였던 모든 세계들과도 완전한 교통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접촉은 그들 자신의 영적 현존, “모든
육신에게 부여줄” 수 있는 진리의 영에 의해 유지된다.
또한 이 주(主)아들들은 모든 것들의 중심에서 영원한
어머니 아들과의 계속적인 연결을 유지한다. 그들은 높은
곳에 계시는 우주 아버지로부터 나와 시간 영역들의 행성
생명의 낮은 종족들에 이르는 동정심의 범위를 갖고 있다.

제 6 장. 주(主)미가엘들의 운명

21:6.1 (241.5) 누구도 지역우주들의 칠중 주(主) 주권자들의 본성과 운명 어느 것도 권한의 최종을 가지고 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이 문제들에 관한 많은 것들은 깊이 생각한다. 우리가 배웠고 믿는 것은, 각 파라다이스 미가엘이 그의 기원된 2원적(二元的) 신(神) 개념들의 절대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무한성의 실재적 위상들을 체현한다. 미가엘들은 전체 무한성과 관련하여 부분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그들의 기원과 관련된 무한성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절대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우주 시대에서의 그들의 일들을 관찰할 때, 우리는 유한을 넘는 어떤 활동도 발견하지 못하며; 추측된 초(超)유한 수용력들이 자아-억제되어 있음에 틀림없고 아직 계시되지 않았다.

21:6.2 (242.1) 창조체-증여 생애들의 완성과 최종 우주 주권으로의 상승은, 유한-이상(以上)의 봉사를 위한 수용력의 출현에 동반되는 미가엘의 유한-활동 수용력들의 완성된 해방을 의미함에 틀림없다. 이러한 연고로 인하여 우리는 그러한 주(主)아들들이 그 때 창조체

존재들의 새로운 유형의 산출에 제한됨을 주목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그들의 초(超)유한 잠재성들의 해방에
의하여 필요하게 된 제약이다.

21:6.3 (242.2) 발견되지 않은 이들 창조자 힘들이 현재 우주
시대에 두루 자아-억제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먼 미래의 언제, 현재 동원되고 있는 외부 공간의
우주들에서, 칠중 주(主)아들과 일곱 번째-단계의 창조 영
사이의 연락이, 궁극 우주 의의(意義)의 초월적
차원들에서의 새로운 사물과 의미들과 가치들의 출현에
수반된, 봉사의 아(亞)절대적 차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21:6.4 (242.3) 체험적 봉사의 덕택으로 최극자의 신(神)이
실재화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바로 것처럼, 창조자 아들은
그들의 헤아려볼 수 없는 본성들 안에 묶여 있는
파라다이스-신성 잠재들의 개인적 실현을 성취하고 있다.
유란시아에서 그리스도 미가엘이 언젠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에서
미가엘들이 분명하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최극 신성으로부터 궁극적

아(亞)절대성을 통하여 영원한 신(神) 최종으로 인도하는
것으로서 모든 우주 개인성들을 위한 빛나는 영원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

21:6.5 (242.4) [유버사로부터 온 지혜의 완전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22 편 삼위일체화 하느님의 아들

22:0.1 (243.1)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세 집단의 존재들이
있다. 하강하는 아들관계의 계층과 상승하는 아들관계의
계층이외에 삼위일체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진 세
번째 집단이 있다. 아들관계의 삼위일체화 계층은 계시된
그리고 계시되지 않은 그 여러 유형의 개인성들의 기원에
따라 3가지 1차 계열로 나뉘어 있다. 이 1차 계열은 다음과
같다:

22:0.2 (243.2) 1. 신(神)-삼위일체화 아들.

22:0.3 (243.3) 2. 삼위일체-포용된 아들.

22:0.4 (243.4) 3.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

22:0.5 (243.5) 기원에 상관없이 모든 삼위일체화 하느님의 아들은 그들 기원의 일부분으로든지, 아니면 나중에 달성되는 삼위일체 포용의 체험으로서든지 삼위일체화구현의 체험을 공통으로 갖고 있다. 신(神)-삼위일체화 아들은 이 글에서 계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나머지 두 집단들, 특별히 하느님의 삼위일체-포용된 아들에게 국한되어 제시될 것이다.

제 1 장. 삼위일체-포용된 아들

22:1.1 (243.6) 모든 삼위일체-포용 아들은 기원적으로 2원적(二元的) 또는 단일 기원에 해당하지만, 삼위일체 포용 이후에는 그들이 삼위일체 봉사와 임무에 언제까지나 헌신된다. 이 무리단은, 계시되는 것으로서 그리고 초우주 봉사를 위해 조직된 것으로서, 일곱 계층의 개인성을 포용하고 있다:

22:1.2 (243.7) 1. 막강한 메신저.

22:1.3 (243.8) 2. 높은 권한자.

22:1.4 (243.9) 3. 이름-번호 없는 자.

22:1.5 (243.10) 4. 삼위일체화 보호관리자.

22:1.6 (243.11) 5. 삼위일체화 대사.

22:1.7 (243.12) 6. 천상의 수호자.

22:1.8 (243.13) 7. 높은 아들 보좌관.

22:1.9 (243.14) 이들 일곱 집단의 개인성들은 기원과 본성 그리고 기능에 따라 더 세분(細分)되는데, 3개의 주요 분야; 삼위일체화 달성의 아들, 삼위일체화 선택의 아들, 그리고 삼위일체화 완전의 아들로 나뉜다.

22:1.10 (244.1) 삼위일체화 달성의 아들—막강한 메신저, 높은 권한자, 이름-번호 없는 자—들은 모두 최종의 무리단과 파라다이스를 달성한 조절자-융합 상승 필사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최종자가 아니다; 그들이 삼위일체 포옹을 이룩한 후에는 그들의 이름들은 최종자 출석부에서 지워진다. 이 계층의 새 아들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영원으로 늘 계신이의 지도 아래에 있는 하보나 순환회로들의 순환회로 본부 행성위에서, 특별한 훈련 과정을 거친다. 그 후로 그들은 일곱 초우주 안에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봉사에 배정된다.

22:1.11 (244.2)

삼위일체화 선택의 아들은 삼위일체화 보호관리자들과 삼위일체화 대사들을 포옹한다. 그들은 하보나를 통과하고 파라다이스를 달성한 진화 세라핌천사들과 전환된 중도 창조체들 중 특정인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중앙에 있는 빛과 생명의 섬으로 마찬가지로 상승한 영-융합 그리고 아들-융합 필사자들 중 특정인들로부터 모집된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게 그들이 포옹된 이후에 그리고 하보나에서의 짧은 훈련 이후에, 삼위일체화 선택의 아들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에 배정된다.

22:1.12 (244.3)

삼위일체화 완전의 아들. 천상의 수호자들과 그들의 조화-협동자들, 높은 아들 보좌관들은, 두 번-삼위일체화된 개인성의 독특한 집단이다. 그들은 파라다이스-하보나 개인성들의 또는 최종의 무리단에서 오랫동안 두드러지게 활동했던 완전해진 상승 필사자들의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이다. 이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 중 일부는, 일곱 주(主) 영의 최극집행자들과의 봉사 이후에 그리고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 아래에서의 봉사 이후에,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의해 재(再)삼위일체화(포옹)되고 그 다음에는 천상의

수호자들로써 그리고 높은 아들 보좌관들로써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에 임명된다. 삼위일체화 완전의
아들들은 더 이상의 훈련 없이 초우주 봉사에 직접
배정된다.

22:1.13 (244.4) 우리의 삼위일체-기원 연관-동료들—지혜의
완전자, 신성한 조연자, 그리고 우주 검열자—은 고정된
숫자이지만, 삼위일체-포용 아들은 계속 증가한다.
삼위일체-포용 아들의 일곱 계층들 전체는 일곱 초우주
정부당국의 한 일원으로 임명되며, 각 초우주에서
봉사하는 숫자는 정확하게 똑같으며; 하나도 잃은 적이
없다. 삼위일체-포용 존재들은 타락에 빠진 적이 결코
없으며; 그들은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어느 하나도
초우주 정부를 경멸하였다는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달성의 아들들과 선택의 아들들은 오르본톤의 봉사에서
전혀 넘어진 적이 없지만, 삼위일체화 완전의 아들들은
때로 심판에 실수를 범하고 그로서 일시적인 혼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22:1.14 (244.5)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지도 하에 일곱 계층
전체는, 거의 대부분 자아-관리 집단으로 기능한다. 그들의

봉사 범위는 멀리까지 이르며; 삼위일체화 완전의 아들들은 배정된 그 초우주를 떠나지 않지만, 그들의 삼위일체화 연관-동료들은 대우주를 그 범위로 삼아,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들로부터 영원한 파라다이스 섬에 이르기까지 여행한다. 그들은 어떤 초우주에서도 기능할 수 있지만, 그들은 기원적으로 임명된 초(超)정부의 일원들로서 항상 그렇게 행한다.

22:1.15 (244.6) 외견상 분명히 삼위일체-포용 아들은 일곱 초우주들의 봉사에 영구적으로 배정되어 온 것처럼 보인다; 분명히 이 배정은 현재 우주 시대의 기간 동안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들은 적이 전혀 없었다.

제 2 장. 막강한 메신저

22:2.1 (245.1) 막강한 메신저들은 삼위일체 아들의 상승 집단에 속한다. 그들은 반역을 시험받았거나 아니면 동등하게 그들의 개인적 충성에 대해 증명된, 완전해진 필사자의 한 등급이다; 모두는 우주 총절에 대한 어떤 분명한 시험을 이미 통과하였다. 모두가 그들의 파라다이스 상승에서 한 때, 그들 상급자들의 불충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견고함과

충성을 지켰으며, 일부는 그러한 불충한 지휘자들을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그리고 충성스럽게 기능하였다.

22:2.2 (245.2) 충실과 헌신의 그러한 개인적 기록들과 함께, 상승하는 이들 필사자는 시간세계의 순례자 유로를 따라 하보나를 통과해 지나가고, 파라다이스를 달성하고, 그곳으로부터 졸업하고, 최종의 무리단으로 소집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포옹의 비밀 안에서 삼위일체화 되고 그 후에는 일곱 초우주들의 정부에 대한 관리-행정에 임명되어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 연관하게 된다.

22:2.3 (245.3) 반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충성으로 기능하는, 굴복하지 않은 체험의 각 상승 필사자들은 결국에는 초우주 봉사의 막강한 메신저가 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또한 실수, 악 또는 죄의 그러한 격변을 효과적으로 막은 상승하는 창조체도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우주 위기에서 반역을 방지하거나 혹은 상급 유형의 충성을 일으키도록 고안된 행동은, 실재 반역에 아랑곳하지 않는 충성보다 더 큰 가치를 갖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22:2.4 (245.4) 선임(先任) 막강한 메신저들은 비교적 초기에
파라다이스에 도착한 자 중에서 시간과 공간의 그렇게
상승한 필사자로부터 선택되었는데, 대부분은 그랜환다
시대에 하보나를 지나갔다. 그러나 후보자 무리단이 일곱
초우주들 각각의 대표자들을 포함할 때까지는 막강한
메신저의 최초 삼위일체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파라다이스에서 자격을 갖춘 이 계층의 최근의 집단은
네바돈 지역우주에서 올라온 상승 순례자들을
포용하였다.

22:2.5 (245.5) 막강한 메신저들은 700,000명씩 등급으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 포용되며, 100,000 명씩 각각의
초우주에 배정된다. 거의 1조(兆) 명의 막강한 메신저들이
유버사에 임명되어 있으며, 일곱 초우주들 각각에서
봉사하는 숫자가 모두 똑같다고 믿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22:2.6 (245.6) 나는 막강한 메신저이며, 나의 필사자 체험의
동행자이자 연관-동료 역시 큰 시험에서 승리하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보나를 향하여 긴 세월 동안 여러 번
그리고 긴 기간 동안 분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은 700,000명씩 집단으로 포용되었고, 그리고
긴밀하고도 사랑스러운 관계적-연합 속에서 대관별을
통해 지나가면서 우리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유란시아인 들에게 흥미로울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오르본톤의 유버사에 임명되고 함께 배정되었으며,
우리는 두 사자들의 봉사들을 요구하는 임무 수행을 위해
종종 함께 파송되고 있다.

22:2.7 (245.7) 모든 삼위일체-포용 아들이 공통으로 그렇듯이,
막강한 메신저는 초우주 활동의 모든 위상에 배정된다.
그들은 초우주 반영 봉사를 통하여 그들의 본부와 계속
접촉을 유지한다. 막강한 메신저는 초우주의 모든
구역에서 봉사하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경우처럼,
지역우주에 그리고 심지어는 개별 세계에 대해 자주
임무를 수행한다.

22:2.8 (245.8) 초우주 법정에서 개별존재와 행성이 재판에
회부되면, 막강한 메신저는 그들, 둘 모두의 옹호자로
활동한다; 또한 그들은 대구역의 문제에 대한 지도에서
완전으로 늘 계신이를 보조한다. 집단으로서, 그들의 주요
임무는 초우주 관찰자가 되는 일이다. 그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공식 관찰자로서 다양한 본부세계와 그리고 중요한 개별 행성에 머문다. 그렇게 배정되면, 그들은 또한 그들이 머무는 구체의 관련사를 지도하는 당국자들에게 충고자로서 봉사한다. 사자들은 필사자 진보의 상승 기획에 속한 모든 위상들에 있어서 활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필사자 기원을 갖는 그들의 연관-동료들과 함께 그들은 가깝고도 개인적인 접촉으로 그리고 내려오는 하느님 아들들의 진보계획에 따라 초(超)정부를 유지한다.

22:2.9 (246.1) 막강한 메신저들은 그들의 전체 상승 생애들을 충분히 의식하며, 그것이 그 어떤 시간 창조체에 대해서든 그리고 그 어떤 공간 세계에서의 봉사든지 그들이 그렇게 유용하고 동정심 많은 사명활동자, 납득하는 메신저일 수 있는 이유이다. 너희가 육신으로부터 구원되자마자, 너희는 우리와 자유롭게 그리고 납득하면서 교통을 나누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공간의 모든 진화 세계에 사는 모든 종족에서 나왔고, 생각 조절자가 내주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융합된 필사 종족 출신이기 때문이다.

제 3 장. 높은 권한자

22:3.1 (246.2) 높은 권한자, 삼위일체화 달성의 아들의 두 번째 집단은, 모두 필사자 기원을 갖는 조절자-융합 존재들이다. 이들은 우월한 행정-관리적 능력을 보여 온 그리고 그들의 상승하는 긴 생애에 두루 비범하게 경영자적인 재능을 보여 온 완전하게 된 필사자들이다. 그들은 공간의 생존되는 필사자들로부터 도출된 통치능력의 진수이다.

22:3.2 (246.3) 매번의 삼위일체 연락마다 70,000명의 높은 권한자들이 삼위일체화 된다. 네바돈 지역우주가 비교적 나이 어린 창조계이기에, 이 계층의 최근 삼위일체화 등급에 있는 대표자들을 갖고 있다. 현재 100억 이상의 이 유능한 행정-관리자들이 오르본톤 안에 임명되어 있다. 따로 분리되어 있는 모든 천상 존재들의 계층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유버사에 자신들의 본부를 유지하며, 다른 삼위일체-포옹 아들과 마찬가지로, 유버사에 있는 그들의 예비자는 오르본톤 안에서 그들 계층의 중앙 지도기구로서 활동한다.

22:3.3 (246.4) 높은 권한자들은 한계가 없는 행정-관리자들이다. 그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어디에나-제시되어 있는 그리고 항상-능률적인 집행자들이다. 그들은 어떤

구체에서나, 거주민이 사는 어떤 세계에서나, 그리고 어떤 일곱 초우주에서의 어떤 활동의 위상에서나 봉사한다.

22:3.4 (246.5) 뛰어난 행정-관리적 지혜와 비범한 집행적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총명한 존재들은 초우주 법정을 대신하여 공의(公義)의 원인을 제시하는 일을 맡는다; 그들은 공의(公義)의 실행과 진화 우주에서의 잘못된 적응들이 개정되도록 하는 일을 돌본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너희의 규정된 우주적 진보를 이루는 그 세계들과 구체들을 상승하는 동안 심판 받을 실수들이 언제든지 언급된다면, 너희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일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너희를 고소하는 자들이 너희가 이미 지나갔고 또 지나가고 있는 생애의 모든 단계들을 직접 잘 아는, 한 때 상승하던 창조체들이기 때문이다.

제 4 장. 이름-번호 없는 자

22:4.1 (246.6) 이름-번호 없는 자들은 삼위일체화 달성의 아들들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집단을 구성한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부터 온 진화 종족들의 모든 아들과 딸들의 솜씨를 뛰어넘어, 경배에 대한 능력을 개발해 온

상승하는 혼들이다. 그들은 우주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영적(靈的) 개념을 획득해 왔고, 그것들은 이름이나 번호에서의 진화 창조체들의 이해력을 상대적으로 초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름-번호 없는 자들이라고 명명된다. 더 엄밀하게 번역한다면, 그들의 이름은 "이름과 번호 보다 위에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22:4.2 (247.1) 이 계층의 아들들은 7,000개의 집단들을 이루면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포용된다. 오르본톤 안에서 임명된 이 아들들이 1억 명 이상 있는 것으로 유버사에 기록되어 있다.

22:4.3 (247.2) 이름-번호 없는 자들이 생존되는 종족들의 우월한 영적 마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관점이 있는 것이 바람직할 때, 그리고 상승하는 생애에서의 체험이 심판 받게 되는 그러한 문제에 포함된 의문점들에 대하여 타당한 이해에 필수적일 때, 심판의 자리에 앉으며, 그리고 의견들을 제시하는 특별하게 분별화된다. 그들은 오르본톤의 최극 배심원들이다. 잘못 관리-운영되는 배심원 체계는 어떤 세계들에서 공의(公義)를 다소 곡해할 수도 있지만, 유버사에서 그리고 그것의 확대된

법정들에서 우리는 진화하는 영적 정신의 최고 유형으로서 배심원-심판관을 채택한다. 어떤 정부에서든지 판결은 가장 높은 기능이며, 판단을 내리도록 위임된 그들은 가장 체험이 많고 납득하는 개별존재들 중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한 유형들로부터 선택되어야만 할 것이다.

22:4.4 (247.3) 막강한 메신저와 높은 권한자 그리고 이름-번호 없는 자의 삼위일체화구현 등급들을 위한 후보자의 선정은 선천적이고 자동적이다. 파라다이스의 그 선택 기법은 어떤 면에서도 인위적이 아니다. 개인적 체험과 영적 가치들이 삼위일체화 달성의 아들들의 구성원을 결정한다. 그러한 존재들은 권한에 있어서 동일하고 행정-관리적 지위에 있어서 똑같지만, 그들은 모두 개별존재성과 다양한 성격들을 소유한다; 그들은 표준화된 존재들이 아니다. 모두가 특징적으로 다르며, 각자의 상승하는 생애들의 차이에 좌우된다.

22:4.5 (247.4) 이들 체험적인 분별된-자격에 추가되어, 삼위일체화 달성의 아들들은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신성한 포옹 안에서 삼위일체화 되어왔다. 따라서 그들은

삼위일체 고정아들들의 조화-협동 연관-동료로서 기능하는데, 왜냐하면 삼위일체 포용이 창조체 존재들의 실현되지 않은 잠재들의 많은 것을 미래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뛰쳐나오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현재 우주 시대에 속하는 것에 한하여 참말로 그러하다.

22:4.6 (247.5) 이 집단의 아들들은 주로, 그러나 전부는 아니고, 시간-공간 필사자들의 상승하는 생애에 대한 봉사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만일 필사 창조체의 관점이 항상 의심 속에 있다면, 그 질문은 막강한 메신저와 높은 권한자 한 분 그리고 이름-번호 없는 자 한 분으로 구성된 상승 위원회에 호소함으로써 해결된다.

22:4.7 (247.6) 이 이야기를 읽는 너희 필사자들은 너희 자신이 파라다이스로 올라가, 삼위일체 포용을 달성하고, 먼 훗날 시대에 일곱 초우주들 중 하나에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봉사에 배속되며, 언젠가는 내가 지금 유란시아에서 기능하는 것처럼 어떤 진화하는 거주 행성에 진리의 계시를 커지게 하기 위하여 배정될 수 있다.

제 5 장. 삼위일체화 보호관리자

22:5.1 (247.7) 삼위일체화 보호관리자들은 삼위일체화 선택의 아들들이다. 너희 종족들과 생존 가치를 지닌 또 다른 필사자들만이 하보나를 지나 파라다이스를 달성하고 언젠가 자신들이 삼위일체 고정아들과 함께 초우주 봉사를 하도록 정해졌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신실한 세라핌천사 수호자들 그리고 동등하게 신실한 너희의 중도(中途) 연관-동료들 역시 똑같은 삼위일체 인정과 장엄한 개인성 운명을 향한 후보자들이 될 수 있다.

22:5.2 (248.1) 삼위일체화 보호관리자들은 하보나를 통과하여 파라다이스와 그리고 최종의 무리단을 달성한 상승하는 세라핌천사들 그리고 전환된 중도 창조체들이다. 그 후에 그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의해 포용되었고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봉사에 배정되었다.

22:5.3 (248.2) 상승하는 세라핌천사들 중에서 삼위일체 포용에 관한 후보자들은, 그들이 최종의 무리단을 달성하고 그리고 뒤이어 삼위일체화를 달성한 어떤 상승하는 필사자와 용감하게 협동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인정을 받는다. 필사자 생애에서 내게 속한 세라핌천사 수호자는 나와 함께 끝까지 견디었고, 나중에 삼위일체화 되었고,

지금은 삼위일체화 보호관리자로서 유버사 정부에
배정되어 있다.

22:5.4 (248.3) 그리고 중도 창조체들도 마찬가지로; 다수가
전환되고 파라다이스를 성취하며, 세라핌천사들을 따라서
그리고 같은 이유로, 삼위일체 포용되고 그리고 초우주
안에서 보호관리자로서 임명된다.

22:5.5 (248.4) 삼위일체화 보호관리자들은 70,000명씩 집단을
이루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게 포용되며, 각 집단의
7분의 1이 한 초우주에 배정된다. 현재 오르본톤의 봉사
에 임하는 이들 신뢰받는 높은 보호관리자들의 숫자는 1억
명이 조금 넘는다. 그들은 유버사에서 그리고 대구역과
소구역 본부구체들에서 봉사한다. 그들의 수고에는, 수백
만 명의 2품천사와 다른 유능한 초우주 개인성들로
이루어진 무리단이 그들을 보좌한다.

22:5.6 (248.5) 삼위일체화 보호관리자들은 보호관리자로서
그들의 생애를 시작하며, 그들은 초(超)정부의 관련사에서
그런 일을 계속한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초우주
정부의 관리-운영하지만, 그들은 천상의 수호자가 하는
것처럼 개별존재를 다루지는 않는다. 삼위일체화

보호관리자들은 집단적 관련사들을 관리-운영하고
집합적 구체적 투사들을 돌본다. 그들은 기록과 계획들
그리고 제도에 대한 보호관리자들이다; 그들은 부대사업,
개인성 집단, 상승자 구체적 투사, 모론시아 계획, 우주
구체적 투사,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업들의 신탁자로서
활동한다.

제 6 장. 삼위일체화 대사

22:6.1 (248.6) 삼위일체화 대사들은 삼위일체화 선택의 아들들
중 두 번째 계층에 해당하고 그들의 연관-동료들인
보호관리자들처럼 두 가지 유형의 상승하는
창조체들로부터 모집된다. 모든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조절자 또는 아버지 융합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영
융합이고, 일부는 아들 융합이다. 이 영-융합 그리고 아들-
융합 필사자들 중 특정인은 하보나에 다다르고
파라다이스를 달성한다. 이 파라다이스 상승자들
가운데로부터, 삼위일체 포옹을 위해 후보자들이
선택되며, 때로는 그들이 7,000명 단위로 삼위일체화 된다.
그 때 그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삼위일체화
대사들로서 초우주들 안에 임명된다. 거의 5억 명이
유버사 안에 등록되어 있다.

22:6.2 (248.7) 삼위일체화 대사들은 하보나 교사들의 조언에 따라 삼위일체 포옹을 위해 선택된다. 그들은 그들 각 집단들의 우월한 마음들을 대표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융합 필사자들이 흩어져 나오는 세계에 대한 권리를 납득하고 관리-운영함에서 초우주 통치자들을 보좌하도록 최상으로 분별화되어 있다. 아들-융합 대사들은 우리가 아들-융합 개인성 계층과 관계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22:6.3 (248.8) 삼위일체화 대사들은 그들이 배정된 그 초우주 안에 있는 어느 세계나 우주에서도 그 어떤 목적에서도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밀사(密使)들이다. 그들은 소구역들의 본부에서 특별하고 중요한 봉사를 하며, 그들은 초우주의 수많은 잡다한 임무들을 수행한다. 그들은 초(超)정부의 삼위일체화 아들들의 비상 또는 예비무리단이며, 그러므로 그들은 광대한 범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유란시아에서 일어나는 아무 일도 이들 활동과 어떤 면에서든 비슷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마음에게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초우주 관련사의 수천가지 사업에 그들은 종사하고 있다.

제 7 장. 삼위일체화구현의 기법

22:7.1 (249.1) 나는 완전한 그리고 완전하게 된 영적 존재들의
최극 창조적 행위—삼위일체화구현의 행위—의 체험을
물질적 마음에게 충분히 드러낼 수 없다.
삼위일체화구현의 기법은 대관별 그리고 단독자별의
비밀에 속하며 독특한 이 체험들을 이미 지나온 그들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계시될 수 없고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납득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비범한 활동행위의
본성과 의미를 인간 마음에게 성공적으로 묘사하는 일은
어떤 존재에게든지 불가능하다.

22:7.2 (249.2) 신(神)들은 별도로 하고, 오직 파라다이스-하보나
개인성들과 각 최종자 무리단의 특정 성원들만이
삼위일체화구현에 종사한다. 파라다이스 완전에서의
특별하게 된 조건 아래에서, 이들 뛰어난 존재들은 개념-
정체성의 독특한 모험여행을 시작할 수 있으며, 그들은
어떤 새로운 존재,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의 산출에 여러
번 성공한다.

22:7.3 (249.3) 그러한 삼위일체화구현의 모험여행에 참여하는
영화롭게 된 창조체들은 단 한번 그러한 체험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이에 반하여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경우에는 삼위일체화구현 에피소드들의 계속적인 산출에 어떤 제한도 없다. 신(神)은 오직 한 가지 면에서만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오직 하나의 기원적이고 무한한 영, 아버지-아들의 연합된 의지의 오직 하나의 무한한 집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22:7.4 (249.4) 파라다이스 문화와 영적 개발에서의 특정 차원들을 이미 달성한 상승하는 조절자-융합 필사자 최종자는 하나의 창조체 존재를 삼위일체화 시키는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자들에 속한다. 필사자-최종자 동무들은, 파라다이스에 머물 때, 하보나 시간으로 1,000년마다 휴가를 얻는다. 그러한 최종자가 이 임무-해방 기간을 보내려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이것 중 하나는, 어떤 동료 최종자 또는 어떤 파라다이스-하보나 개인성과 관련하여, 창조체 삼위일체화구현의 실연을 시도하는 것이다.

22:7.5 (249.5) 만약에 두 필사자 최종자가,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 앞에 가서, 그들이 삼위일체화구현을 위한 동등한 개념을 독자적으로 선택하였음을 실증하면, 고안건축가들은, 그들 자신의 사려 깊은 분별위에서,

영화롭게 된 이 필사자 상승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휴가를 연장하고 파라다이스 시민들의 삼위일체화하는 구역으로 한동안 이동하도록 허락하는 명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배정받은 수양 기간이 끝날 때, 만일 그들이 그 때까지 삼위일체화를 거치지 않은 선택한 기원적인 개념을 그들이 영성화 시키고 이상화 시키고 실재화시키는 파라다이스적인 노력을 단독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하기를 선택하였음을 보고하면, 제 7번 주(主) 영은 그러한 비범한 시도를 허락하는 명령을 내린다.

22:7.6 (249.6) 때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 기간이 이들 모험에 소모된다; 한 때 필사자—그리고 때로는 파라다이스-하보나 개인성—이었던 신실하고 단호한 이 존재들이 우주적 진리 중 그들의 선택한 개념을 실재적 존재가 생겨나게 함에서 실제로 성공하게 되기까지 한 시대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헌신된 이 쌍들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그들의 역할에서 실수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번 실패한다. 그렇게 실패한 삼위일체화구현을 위한 후보자들은 최극의 노력을 기울이고 최극의 실망감을 참은 존재들이라고 명명되는 최종자의 특별 집단에 받아들여진다. 파라다이스

신(神)들이 삼위일체화하기 위하여 연합할 때, 그들은 항상 성공하지만, 창조체들의 균일한 한 쌍, 같은 조직의 존재의 두 요원들의 계획된 연합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22:7.7 (250.1) 새롭고도 기원적인 존재가 하느님들에 의해 삼위일체화 될 때, 신성한 그 부모들은 변하지 않는 신(神) 잠재 안에 있지만; 고양된 창조체 존재들이 그러한 창조적 에피소드를 시작할 때에는, 동맹하고 참여하는 개별존재들 중 하나가 독특한 개인성 변형을 겪게 된다.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의 두 조상들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하나로 된다. 최극존재가 대우주 안에서 충만한 그리고 완벽해진 개인성의 현시활동을 달성하게 되는 시기인 그때까지는 개인성의 이 일정한 영적 위상들의 이원-통일의 지위가 아마 널리 퍼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22:7.8 (250.2) 새로운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의 출현과 동시에, 두 조상들의 이 기능적 영적 연합이 발생한다; 삼위일체화 하는 두 부모들은 궁극의 기능적 차원에서 하나가 된다. 우주 안에 있는 어떤 피조 존재도 이 놀라운 현상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거의-신성한 체험이다. 무한한

영을 영존시키기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하였을 때, 그들의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그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로 되었고 그 후로 항상 하나였다. 그리고 두 창조체들의 삼위일체화구현 연합이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완전한 신(神) 연합의 무한 규모의 계층에 있을 동안에는, 창조체 삼위일체화구현의 반향들은 본성에서는 영원하지 않다; 그들은 체험적 신(神)들의 완성된 사실화달성 위에서 끝날 것이다.

22:7.9 (250.3)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의 이 부모들이 그들의 우주 임무들 안에서 하나처럼 되는 동안, 그들은 최종의 무리단의 그리고 주(主)우주 고안건축가에서의 구성과 호출에서는 두 개인성들로서 계속 알려질 것이다. 현 우주시대 동안, 모든 삼위일체화구현-연합 부모들은 임무에서 그리고 기능에서 분리될 수 없다; 하나가 가는 곳에 다른 이가 가고, 하나가 하는 것을 다른 이가 한다. 만일 부모의 이원-통일이 필사자(또는 다른) 최종자와 파라다이스-하보나 개인성을 포함하게 되면, 연합된 부모 존재들은 파라다이스 원주민들이나 하보나 원주민은 물론 최종자와도 함께 기능하지 않는다. 그러한 혼합된 연합들은 비슷한 존재들을 구성하는 특별한 무리단

안에서 모인다. 그리고 모든 삼위일체화구현 연합에서, 혼합되거나 아니면 혼합되지 않은, 부모가 되는 존재는 서로를 의식하고 서로 교통할 수 있고, 그들은 그 전에 어느 쪽도 수행할 수 없었던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다.

22:7.10 (250.4) 일곱 주(主) 영들은 최종자와 파라다이스-하보나 개인성들의 삼위일체화 하는 연합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혼합된 연락들은 항상 성공적이다. 그러한 결과적인 훌륭한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은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창조체들 또는 공간의 시간 창조체들 중 어느 한쪽에도 이해하기가 부적당한 개념들을 대표한다; 따라서 그들은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의 피보호자가 된다. 이들 삼위일체화 운명의 아들들은 겉으로 보기에 미래 우주 시대에 속하는 그리고 초우주 또는 중앙우주 관리-행정 어느 쪽에도 즉각적인 실천적 가치가 되지 않는 관념과 이상과 그리고 체험을 체현한다. 시간의 자녀들 중 이 독특한 아들과 영원의 시민은 모두 대관별에서 예비에 속해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창조자 아들 무리단의 비밀 대학이 점유하는 구체의 특별 구역에서 시간의 개념들과 영원의 실체들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22:7.11 (251.1) 최극존재는 신(神) 실체의 세 위상에서의 통일이다: 최극자 하느님,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일정한 유한 측면의 영적 통일; 전능 최극자, 대우주 창조자들의 능력 통일; 그리고 최극 마음, 셋째근원이며 중심과 그의 조화-협동자들의 최극존재의 실체에 대한 개별적 기여이다. 중앙우주와 파라다이스의 훌륭한 창조체들은, 그들의 삼위일체화구현 모험여행에서, 결과적으로 세 가지 계층의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의 생산이 유래된, 최극자의 신(神)의 삼중 탐험에 참여한다:

22:7.12 (251.2) 1. 상승자-삼위일체화 아들. 그들의 창조적 노력에 있어서 최종자는 그들이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파라다이스로 상승함에서 그들이 체험적으로 획득한 전능 최극자의 특정한 개념적 실체들을 삼위일체화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22:7.13 (251.3) 2. 파라다이스-하보나-삼위일체화 아들. 파라다이스 시민들과 하보나 시민들의 창조적 노력은 궁극자와 영원자에 경계를 이루는 초(超)최극 배경위에서 그들이 체험적으로 획득한 최극존재의 특정한 높은 영적 측면의 삼위일체화구현으로 귀결된다.

3. 삼위일체화 운명의 아들. 그러나 최종자와 파라다이스-하보나 주민이 함께 새로운 창조체를 삼위일체화 할 때, 이 공동 노력은 최극-궁극 마음의 특정한 위상들에 반향한다. 귀결되어지는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은 초(超)창조적이다;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체험적으로 달성되지 않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의 관할구역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최극-궁극 신(神)의 실재성을 대표하며, 현 우주 시대의 창조적 한계들을 초월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의 보호관리자들이다. 삼위일체화 운명의 아들들은 최극-궁극자의 계시되지 않은 주(主)우주 기능의 어떤 측면들을 체현한다. 시간과 영원의 이 공동 자녀들에 관하여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하도록 허용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제 8 장.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

이 장(章)에서 고려되는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 이외에도, 수많은 계시되지 않은 창조체-삼위일체화 존재들의 계층— 일곱 최종자 무리단과 파라다이스-하보나 개인성들의 다중 연락의 다양한

자손—이 있다. 그러나 계시된 그리고 계시되지 않은 이 모든 창조체-삼위일체화 존재들은 우주 아버지에 의해 개인성을 자질로서 부여 받는다.

22:8.2 (251.6) 새로운 상승자-삼위일체화 아들들과 파라다이스-하보나-삼위일체화 아들들이 어리고 훈련을 받지 않았을 때, 그들은 대개 무한한 영의 일곱 파라다이스 구체들에서 긴 기간 동안 봉사하도록 보냄을 받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일곱 최극집행자의 감독 아래에서 봉사한다. 그 후에 그들은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에 의해 지역우주에서 더 훈련을 받도록 입양되기도 한다.

22:8.3 (251.7) 높고 영화롭게 된 창조체 기원을 갖는 이 입양된 아들들은 교사 아들들의 견습생들, 학생 조력자들이며, 분류상 그들은 종종 이들 아들로써 일시적으로 계수 된다. 그들은 그들이 선택한 봉사 영역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아-부정으로 여러 고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22:8.4 (251.8) 지역우주 안에 있는 교사 아들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의한 포용을 위하여 그들의 창조체-삼위일체화 피보호자들을 지명할 수 있다. 이

포용으로부터 삼위일체화 완전의 아들들로서 떠오른 후에, 그들은 일곱 초우주들 안에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봉사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지금 두 번-삼위일체화된 존재들의 이 독특한 집단의 운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22:8.5 (252.1) 모든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이 삼위일체 포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많은 숫자는 파라다이스의 일곱 주(主) 영들의, 초우주들의 반영 영들의, 그리고 지역 창조계들의 어머니 영의 연관-동료들과 대사들이 된다. 어떤 존재들은 영원한 섬에서 특별한 임무에 배정될 수 있다. 또 다른 존재들은 영의 파라다이스 구체들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비밀 세계들에서 특별 봉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 결국에는 대부분은 하보나의 내부 순환회로에서 삼위일체화 아들들의 공동 무리단 안으로 가는 자신들의 길을 찾는다.

22:8.6 (252.2) 삼위일체화 완전의 아들들 그리고 대관별에 모든 그들을 제외하고, 모든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의 최종 운명은 일곱 개의 파라다이스 최종의 무리단들 중 하나인 삼위일체화 최종자 무리단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 9 장. 천상의 수호자

22:9.1 (252.3)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은 7,000명 단위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의해 포용된다. 완전하게 된 인간들과 파라다이스-하보나 개인성들의 삼위일체화된 이들 자손은 모두 똑같이 신(神)들에 의해 포용되지만, 그들은 그들 이전의 강사들인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의 조언에 따라 초우주에 배정된다. 더 흡족한 봉사를 한 그들은 높은 아들 보좌관들로서 임명된다; 특출함이 덜한 성적을 이룬 이들은 천상의 수호자로 지명된다.

22:9.2 (252.4) 이들 독특한 존재들이 삼위일체 포용을 이루게 되면, 그들은 초우주 정부에 가치 있는 보조자들이 된다. 그들은 개인적 상승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간의 세계들에서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과 함께 했던 그들의 봉사의 결과로서 상승자 생애의 관련사들을 통달한다.

22:9.3 (252.5) 거의 10억 명에 이르는 천상의 수호자가 오르본톤에서 임명되어 있다. 그들은 주로 대구역의 본부에 있는 완전으로 늘 계신이의 관리-행정에 배정되어 있으며 상승하는 아들-융합 필사자 무리단에 의해 훌륭하게 도움을 받는다.

22:9.4 (252.6) 천상의 수호자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원의 관리들인데, 법정 메신저들로서 그리고 초우주 정부의 다양한 법정들의 소환과 결정의 전달자로서 기능한다. 그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구금 대리자이다; 그들은 초우주 심판관들 앞에 현존으로 나와야 할 존재들을 데리고 돌아오기 위해 유버사로부터 나간다; 그들은 초우주 안에 있는 어떤 개인성이든지 구류시키라는 명령을 수행한다. 또한 그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지역우주의 영-융합 필사자들이 유버사에 그들의 출석이 요구될 때, 그들을 따라간다.

22:9.5 (252.7) 천상의 수호자와 그들의 연관-동료들인 높은 아들 보좌관들은 조절자가 내주한 적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과 결합하지도 않고 아들과 결합하지도 않는다. 아무튼,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포용은 삼위일체화 완전의 아들들의 비-융합 지위에 대한 보정이다. 삼위일체 포용은 다르게 변화되지 않은 포용된 아들을 제외하고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 안에서 개인화된 관념위에서 단독으로 행동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한계는 오직 그렇게 계획되었을 때에만 발생한다.

이들 두 번-삼위일체화된 아들은 놀라운 존재이지만, 그들은 다재다능한 상태도 아니고 그들의 상승자 연관-동료들처럼 믿음직스럽지도 않다; 그들은 이 집단에 속하는 아들들 중 나머지가 우주의 어두운 권역으로부터 영광을 향하여 실재적으로 기어 올라감으로써 획득한 거대하고도 심오한 개인적 체험을 갖고 있지 않다. 상승자 생애를 가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힘으로 그들의 결핍을 보정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낮은 기원과 체험에 대한 우리의 수용능력에 항상 우리에게 고맙게 여긴다. 우주 상승의 체험 가능한 실체들안에 있는 그들의 결핍을 감지하고 시인하려고 그들이 기꺼이 나서는 것은 초월적으로 아름답고, 어떤 때에는 가장 감동을 주는 애처로운 일이다.

삼위일체화 완전의 아들들은 다른 삼위일체-포옹 아들들에 비하여 제한적인데 왜냐하면 그들의 체험 능력이 시간-공간에 억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극집행자 그리고 교사 아들과 함께 긴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험-부족에 있으며, 만일 이것이 그게 아니라면, 체험적 포화는 그들 존재가 미래 우주 시대에서 체험을 습득하기 위하여 예비로 남는 것을

방해했을 것이다. 실재적인 개인적 체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우주적 실존 안에는 아무 것도 없으며, 이들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은 어떤 미래 우주 신(新)시대에 체험적으로 기능하도록 예비로 남아있다.

22:9.8 (253.2) 맨션세계들에서 나는 종종, 초우주의 높은 법정들에 속한 이들 고귀한 관리들이 공간의 진화 세계들로부터 막 도착한 자들조차 너무나 동경하며 그리고 호소하는 심정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들 비(非)체험적 삼위일체화구현의 소유자들이, 진정한 체험과 실재적 삶의 계단에 의해 우주 경로를 상승하는, 일반적으로 보기엔 그들보다 운이 나쁜 그들의 형제들을, 실제로 부러워 한다는 것을 누구도 알아차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의 장애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초우주 정부의 복잡한 행정-관리적 계획이 실행될 때 놀라울 정도로 유용하고 항상-기꺼이 일하는 자들의 무리단이다.

제 10 장. 높은 아들 보좌관

22:10.1 (253.3) 높은 아들 보좌관들은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의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연관-동료들, 파라다이스-하보나 개인성들의 영화롭게 된 상승자 존재들 중

재(再)삼위일체화 된 삼위일체화 아들의 우월한 집단이다. 그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정부의 높은 아들에 대한 개인적 도움자로서 초우주 봉사와 기능에 배정되어 있다. 그들은 사적(私的)인 비서로 부르는 것이 더욱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때때로 특별위원회의 그리고 높은 아들의 다른 집단 관계적-연합의 서기로 활동한다. 그들은 지혜의 완전자, 신성한 조연자, 우주 검열자, 막강한 메신저, 높은 권한자, 그리고 이름-번호 없는 자들을 섬긴다.

22:10.2 (253.4) 만일, 천상의 수호자를 논함에 있어서, 내가 이 두 번-삼위일체화 아들들의 한계들과 부족함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다면, 온통 공평하게, 나는 지금 그들의 위대한 강한 힘의 한 단면, 그들이 우리에게 거의 가치를 따질 수 없도록 만드는 속성에 관심을 기울여본다. 이들 존재는 그들이 단일의 그리고 최극 개념의 개인화구현이라는 바로 그 사실에 그들의 실존 이유가 있다. 그들은, 이전에는 결코 착상되거나 표현되거나 삼위일체화된 적이 없어왔던, 어떤 신성한 관념, 어떤 우주 이상들의 개인성 체현이다. 그리고 그들은 뒤 이어서 삼위일체 포용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들의

개인성 실존에서의 관념-이상에 관하여 신성한 삼위일체의 바로 그 지혜를 드러내고 실재로 구현한다. 그 특정 개념이 우주에 계시할 수 있는 한, 이들 개인성은 어떤 창조체나 창조자 지능이 착상하고, 표현하고 또는 예증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모두 다 체현하고 있다. 그들은 바로 개인화된 관념이다.

22:10.3 (253.5) 너희는 그러한 우주 실체에서의 한 가지 최극 개념의 살아있는 집중화들이 초우주 관리-행정을 맡고 있는 이들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봉사에 쓰이고 있음을 알지 못하겠느냐?

22:10.4 (254.1) 내가 오르본톤의 남쪽 부분에 있는 새로운 우주들의 한 집단에 있는 세 가지 문제들을 연구하도록 배정된 여섯 개—높은 아들들 각각에 하나씩—의 위원회를 주관하라고 지도받은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나는 높은 아들 보좌관들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그때에 내 위원회에 그러한 비서를 일시적으로 배정하도록 유버사에 있는 그들 계층의 우두머리에게 요청하였다. 우리의 관념 중 첫 번째는 우리 집단에 즉시 배속되었던 유버사에 있는 높은 아들 보좌관이

대신하였다. 우리의 두 번째 문제는 3번 초우주에 배정된 높은 아들 보좌관 안에 체현되었다. 우리는 필수지식의 조화-협동과 보급을 위하여 중앙우주 교환소를 통하여 이러한 근원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확보하였고, 그 어떤 것도 최극위 안에서 창조체-삼위일체화된 그리고 최종자 안에서 신(神)-삼위일체화된 개념인 개인성의 실재 현존으로 제공되는 도움에 비교될 수 없었다. 우리의 세 번째 문제점에 관하여, 파라다이스 기록은 그러한 관념이 결코 창조체 삼위일체화된 적이 없었음을 보여주었다.

22:10.5 (254.2) 높은 아들 보좌관들은 광대한 개념들과 엄청난 이상들의 독특하고도 기원적인 개인성구현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은 때때로 우리의 심의에 비할 바 없는 빛을 비춰줄 수 있다. 내가 공간의 우주에서 바깥의 어떤 원격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내가 운 좋게도, 내가 착수하고 해결하도록 파송된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신성한 개념의 총만인 높은 아들 보좌관을 내 임무에 배속 받았다면, 이것이 지원 방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나는 바로 이러한 체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 이 계획에 있는 유일한 문제는 어떤 초우주도 이런 삼위일체화 관념들의 완벽한 한 별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관념이 삼위일체화 되었음을 기록들이 나타내도 우리가 이들 존재의 개인적 관계적-연합을 누리는 것은 일곱 번 중 한 번뿐이다.

22:10.6 (254.3) 우리는 유버사에 있는 이들 존재 중 훨씬 많은 숫자를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초우주 관리-행정들에 대한 그들의 가치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공간의 순례자에게 용기를 주고 또한 파라다이스의 거주민들에게는 그들이, 그러한 창조적 모험여행의 실행에 필수인 그러한 체험적 실체로서로에게 기여한 후에 삼위일체화구현을 시도하라고 용기를 준다.

22:10.7 (254.4) 현재 우리는 약 1,250,000 명의 높은 아들 보좌관들을 우리 초우주 안에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들이 유버사에서 기능하듯이 대구역 그리고 소구역 둘 모두에서 봉사한다. 그들은 먼 우주들에 우리가 배정될 때 우리와 종종 동행한다. 높은 아들 보좌관들은 어떤 아들 또는 어떤 위원회에든지 영원토록 배정되지 않는다. 자신들이 아들이 되어온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영원한 목적들을, 가장 잘 진전시킬 수 있고, 관념 또는 이상이

있는 곳에 자신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 이다.

22:10.8 (254.5) 그들은 감동적으로 사랑스러우며, 놀랄 만큼
충성스럽고, 지극히 지능적이며, 최극으로
현명하고—어떤 하나의 개념에 관하여—초월적으로
겸손하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의 관념 또는 이상과
관련하면서 우주의 전승지식을 너희에게 심어줄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다른 주체 무리, 심지어 상승하는
필사자들로부터 지식과 정보를 찾고 있는 그들을
지켜보는 것은 아주 애처롭다.

22:10.9 (254.6) 그리고 이것은 하느님의 삼위일체화 아들들이라
불리는 이들, 좀 더 자세하게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신성한 포옹을 통과하여 지나온, 그리고 초우주들에
배정되어, 그곳에서 즉각적인 하보나 목적지를 향해
그리고 결국 생겨나는 파라다이스 목표를 향해 상승하고
있는, 시간의 필사자들의 안쪽으로의 진보를
촉진시키려는 자신들의 지치지 않는 노력으로,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관리행정자들에게 현명하고도 납득하는

협력을 주려고, 초우주 봉사에 배정된, 특정한 자의 기원과 본성과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22:10.10 (255.1) [오르본톤의 계시 무리단에 속한 막강한 메신저에 의해 진술되었음]

제 23 편 단독 메신저

23:0.1 (256.1) 단독 메신저들은 공동 창조자의 개인적이고 우주적 무리단이다; 그들은 무한한 영의 높은 개인성들 중 첫 번째 그리고 선임 계층이다. 그들은 실존 단독 개인성 영이 되게 하는 목적을 위한 단독 기능에서 무한한 영의 최초 창조적 행동을 대표한다. 아버지나 아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엄청난 영성화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23:0.2 (256.2) 이들 영 메신저는 한 번의 창조적 에피소드 속에서 개인성구현되었으며, 그들의 숫자는 고정되어 있다. 비록 내가 현재의 이 임무에서 이들 비범한 존재 중 나와 연관된 한 명을 소유하고 있지만, 나는 우주들의 우주 안에 그러한 개인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오로지 내가 아는 것은, 때때로 우리 초우주의 관할권 안에서 당분간 기능하는 것으로 등록-기록된 숫자가 얼마인가 하는 것이다. 최근의 유버사 보고서로부터 나는 오르본톤의

경계 내에서 그 때 활동하는 단독 메신저들이 거의 7,690조 (兆)가 있었음을 보았다; 나는 이것이 그들의 전체 숫자의 7분의 1보다 훨씬 적으리라고 추측한다.

제 1 장. 단독 메신저들의 본성과 기원

23:1.1 (256.3) 하보나 일곱 순환회로 영의 창조 바로 다음에 무한한 영이 광대한 무리단의 단독 메신저들을 존재하게 하였다.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순환회로들을 제외하고 단독 메신저들보다 선재하는 우주적 창조의 어떤 부분도 없다; 그들은 영원 가까이부터 대우주에 두루 기능해 왔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멀리-퍼지는 창조계에 대한 자아-계시를 위한, 그리고 그들과 개인적인 접촉을 위한 무한한 영의 신성한 기법에 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23:1.2 (256.4) 이들 메신저들은 영원의 가까운 시절부터 실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자아신분의 시작을 알고 있다. 그들은 시간을 의식하며, 그러한 시간 인식을 소유하는 무한한 영의 첫 번째 창조다. 그들은 시간 속에서 개인성구현되고 공간 속에서 영성화된 무한한 영의 첫-태생 창조체들이다.

23:1.3 (256.5) 이들 단독 영은 시간의 여명기에 충만한-성장
그리고 완전하게 자질로서 부여받은 영 존재로서
나아왔다. 그들은 모두 동등하고, 개인적 변동에 기초한
등급이나 부서들이 없다. 그들의 분류는 그들이 그때그때
배정되는 일의 유형에 전적으로 기초를 둔다.

23:1.4 (256.6) 필사자들은 공간의 세계들에서 거의 물질적
존재들로서 시작하고 위대한 중심들을 향해 안쪽으로
상승한다; 이들 단독 영은 만물의 중심에서 출발하여 먼
창조계에, 심지어는 가장 바깥에 있는 지역우주들에 있는
개별 세계들과 그리고 그 너머에까지 가는 임무를 몹시
원한다.

23:1.5 (256.7) 단독 메신저라고 명명되지만, 그들은 고독한
영들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체 창조 안에서 홀로
실존함을 즐길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유일한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제우애를 나눌 수 있는
극소수 우주 지능 계층과의 관계적-연합을 똑같이
좋아한다.

23:1.6 (257.1)

단독 메신저들은 그들의 봉사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이 머무는 영역의 모든 방송에 그들이 "귀를 기울일"수 있는 것처럼 모든 창조의 지성의 보물과 계속 접촉을 이루고 있다. 또한 그들은 그들 존재가 같은 초우주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그들 자신의 직속 무리단의 일원들과 서로 교통을 할 수 있다. 그들은 그들 집합의 다른 존재들과 교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일곱 주(主) 영의 위원회에 의해 그렇게 하지 말도록 지도를 받고 있고, 그들은 충성스러운 집단이다; 그들은 불복종이나 불이행을 하지 않는다. 단독 메신저들이 언제라도 어둠 속으로 넘어졌다는 그 어떤 기록도 없다.

23:1.7 (257.2)

단독 메신저들은, 우주 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의 법정들에 의해 판단되거나 구류되는 일로부터 제외되는, 영역들에 두루 활동하는 매우 적은 유형의 존재들에 속한다. 그들은 일곱 주(主) 영들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 앞에도 소환될 수 없고, 한편 주(主)우주의 연대기(年代記)를 통틀어서 이 파라다이스 협의회가 단독 메신저의 사례를 판결하려고 소집된 적이 결코 없었다.

23:1.8 (257.3)

단독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 메신저는 셋째근원이며 중심으로부터 기인된 창조된 존재들 중 믿음직스럽고 자아-의존적이며 다재다능하며 속속들이 영적이며 광범위하게 동정적인 집단이다; 그들은 파라다이스의 중앙 섬에 거주하는 무한한 영의 권한에 의해 그리고 지역우주들의 본부 구체들에서 개인성구현되어 활동한다. 그들은 지역 창조계 속에서 지역우주 어머니 영들의 직속 영향 아래에서 기능할 때에도, 무한한 영으로부터 발산되는 직접 순환회로의 지속적인 동참자들이다.

23:1.9 (257.4)

이들 단독 메신저들이 왜 홀로 여행하고 일해야 하는지 기술적 이유가 있다. 짧은 기간 동안 고정되어 있을 때, 그들은 집단을 이루어 협동할 수 있지만, 그렇게 모여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의 파라다이스 순환회로의 영양과 지도로부터 모두 함께 단절된다; 그들은 온통 고립된다. 이동 중에 있을 때, 또는 공간의 순환회로들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활동할 때, 만일 이 계층의 둘 또는 그 이상이 아주 근접하게 되면, 둘 모두 또는 전체는 더욱 높은 순환 기세와의 연락으로 내동댕이쳐진다. 너희가 예시되는 상징으로 묘사해 보자면, 그들은 “전기 합선”이다.

그러므로 충돌이 그들에게 경고되도록 정확하게 작동하고 그들의 적당한 그리고 효력적인 기능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들을 충분히 분리되도록 확실하게 유지하는 자동경보, 경계신호의 힘이 그들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다. 또한 그들은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과 신성한 생각 조절자 둘 모두의 근접을 감지하고 알리는 선천적이고 자동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다.

23:1.10 (257.5) 이 메신저들은 개인성 확장 또는 재생산의 힘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어떤 우주의 일도, 그들이 종사할 수 없거나, 그리고 그들이 어떤 필수적이고 도움 되는 일을 이바지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은 실천적으로 없다. 특별히 그들은 우주 관련사의 관리-행정에 관련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크게 시간을 절약해 주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가장 높은 자로부터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를 돕고 있다.

제 2 장. 단독 메신저의 임무배정

23:2.1 (257.6) 단독 메신저들은 천상의 개인성들의 그 어떤 개별존재나 집단에도 영구적으로 배속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임무에 따라서 직책을 수행하며, 그렇게

봉사하는 동안 그들은 그들이 배정된 그 영역들을 지도하는 자들의 직속 감독 아래에서 활동한다. 그들은 그들끼리 어떤 종류의 조직이나 정부도 갖지 않는다; 그들은 단독사자들이다.

23:2.2 (258.1) 단독 메신저들은 다음과 같은 일곱 봉사 부서에 무한한 영에 의해 배정된다:

23:2.3 (258.2) 1.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메신저.

23:2.4 (258.3) 2. 하보나 순환회로의 메신저.

23:2.5 (258.4) 3. 초우주의 메신저.

23:2.6 (258.5) 4. 지역우주의 메신저.

23:2.7 (258.6) 5. 지도되지 않은 임무의 탐험자.

23:2.8 (258.7) 6. 특무 대사 그리고 밀사(密使).

23:2.9 (258.8) 7. 진리 계시자.

23:2.10 (258.9) 이들 영 메신저들은 모든 면에서 한 유형의 봉사로부터 다른 것으로 서로 바뀔 수 있다; 그러한 전환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단독 메신저들의 그 어떤 따로

된 계층은 없다; 그들은 영적으로 똑같고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번호에 의해 지명되는 반면, 무한한 영에게는 개인적 이름으로 알려진다. 나머지 우리들에게 그들은 그들의 현재 임무를 가리키는 이름이나 번호로 알려져 있다.

23:2.11 (258.10) 1.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메신저. 나는 삼위일체에게 배정된 그 집단의 메신저들의 활동을 많이 계시하도록 허락을 받지는 않았다. 그들은 신(神)들의 신뢰받는 비밀하인들이며, 계시되지 않은 정책들 그리고 하느님들의 미래 행위성을 포함하는 특별한 내용들을 맡았을 때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들이 그들 계층에 위탁된 신용을 배반한 적이 결코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과 관련하여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완전성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神)들이 완전 존재를 창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23:2.12 (258.11) 유란시아의 혼동과 혼란이, 파라다이스 통치자들에게 관련사들이 달라지도록 관리하는 관심이나 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창조자들은

유란시아를 진실 그대로의 파라다이스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러한 에덴은 필요성이라는 모루와 고통이라는 망치 사이에서 하느님들이 분명하게 너희 세계에 이루려는 그 강력하고 고귀하며 체험된 성격들의 개발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욕망과 슬픔은, 너희의 시련들과 실망들은, 완전한 중앙우주의 세계들에서의 만물의 절묘한 완전성과 그들의 최극 목적에 대한 무한한 적응이 되는 것으로서 것처럼, 너희 구체에 대한 신성한 계획의 일부분이다.

23:2.13 (258.12) 2. 하보나 순환회로들의 메신저. 상승하는 생애에 두루 너희는 막연하게 그러나 점점 더 단독 메신저들의 현존을 감지하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하보나에 도착하기 전에는 그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대면하게 될 그 메신저들 중 첫 번째는 하보나 순환회로들의 그들이 될 것이다.

23:2.14 (258.13) 단독 메신저들은 하보나 세계들의 원주민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린다. 서로 연관할 때 기능적으로 매우 불이익을 당하는 이 메신저들은 하보나 원주민들과 매우 가깝고도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그러나 그러한 거의-초월적인 개인성들의 영들과 신성하게 완전한 이 존재들의 마음들의 접촉의 결국 생겨나는 최극의 만족감들을 인간 마음에 전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다.

23:2.15 (259.1) 3. 초우주들의 메신저. 일곱 초우주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삼위일체 기원의 저들 개인성이고, 신성한 힘과 행정-관리적 지혜의 그 삼총사들인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게는, 단독 메신저들이 풍부하게 제공되어 있다. 하나의 초우주의 삼원적 통치자들이 다른 것의 통치자들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계층의 메신저들을 통해서이다. 단독 메신저들은 한 초우주의 본부로부터 다른 초우주의 본부로 직접적으로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한—어쩌면,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을 제외하고—영 지능체의 유형이다. 다른 모든 개인성들은 하보나와 주(主) 영들의 집행적 세계들을 거쳐서 그러한 여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3:2.16 (259.2) 중력 메신저나 반영성 또는 방송, 그 어느 것을 이용해도 얻을 수 없는 어떤 종류의 정보가 있다. 그리고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이러한 일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그들은 지식의 근원에게 단독 메신저를 보내야 한다. 유란시아에 생명의 현존이 나타나기 오래 전에, 지금 나와 연관되어 있는 메신저는 유버사로부터 중앙우주로 가는 어떤 임무에 배속되었었다—거의 백만 년 동안 오르본톤의 출석 점호에서 빠졌었지만 때가 되자 훌륭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다.

23:2.17 (259.3) 초우주 안에서의 단독 메신저들의 봉사에는 한계가 없다; 그들은 높은 법정들의 집행자들로써 또는 영역의 복지를 위한 정보 수집원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그들은 모든 초우주들 중 오르본톤에서 봉사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 필요성이 여기에서 가장 크고 또한 용맹스러운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들이 크게 배가(倍加)되기 때문이다. 더 빈곤한 영역일수록 우리 모두는 더 충만한 기능에서의 만족감을 누린다.

23:2.18 (259.4) 4. 지역우주들의 메신저. 지역우주의 봉사에서 단독 메신저의 기능에는 제한이 없다. 비록 그들이 다스리는 주(主)아들의 충만한 관할권 아래에 있지만, 그들은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의도와 동기에 대한 충실한

게시자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우주 본부로부터 직접 여행을 나가든지, 아니면 별자리 아버지나 체계 주권자 또는 행성영주와 연락하면서 그들이 일시적으로 활동하든지 상관없이, 지역우주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메신저에게 참말이다. 창조자 아들이 자신의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로 승격되면서 그의 손 안에 모든 힘이 집중되기 전에, 지역우주의 이들 메신저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총체적인 지도에 따라 기능하며, 그들의 거주 대표자인 연합으로 늘 계신이에게 직속으로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23:2.19 (259.5) 5. 지도되지 않은 임무의 탐험자. 단독 메신저들의 예비무리단이 너무 많이 모집되면, 일곱 최극 힘 지도자들 중 하나가 탐험 자원자들을 모집한다; 한 번도 자원자가 부족한 적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새로운 세계들과 우주들의 조직화되는 핵들을 발견하는 감격을 체험하기 위하여 자유롭고도 방해받지 않는 탐험자로 보냄을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23:2.20 (259.6) 그들은 영역들의 공간을 깊이 연구하는 자들에 의해 제공된 실마리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나아간다.

의심할 여지없이 파라다이스 신(神)들은 공간의 이들 발견되지 않은 에너지 체계들의 실존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러한 정보를 결코 나타내지 않는다. 만일 단독 메신저들이 이들 새롭게 조직되는 에너지 중심들을 탐험하고 지도에 그리지 않는다면, 그러한 현상들은, 심지어 인접한 영역들의 지능체에게도 눈에 띄지 않은 채 오래 남아 있었을 것이다. 하나의 등급으로서 단독 메신저들은 중력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그들은 가끔 매우 작은 암흑 행성들, 창조체 실험에 가장 적합한 바로 그런 세계들의 현존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다.

23:2.21 (260.1) 지도되지 않은 임무를 띤 이 메신저-탐험가들은 주(主)우주 를 순찰한다. 그들은 모든 외부 공간의 지도에 없는 지역으로 원정 여행을 항상 나가고 있다. 외부 공간에서의 활동행위들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단독 메신저들의 탐험에 빛을 지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천상의 천문학자들과 함께 종종 일하고 연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23:2.22 (260.2) 6. 특무 대사들과 밀사. 같은 초우주 안에 위치한 지역우주들은 관례적으로 그들 본토의 아들관계 계층에서

선택되는 대사들을 교환한다. 그러나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단독 메신저들은 한 영역을 다른 것에게 제시하고 해석하도록, 한 지역 창조계로부터 다른 곳으로 대사로서 가도록 종종 요청을 받는다. 예를 들자면: 새로운 거주 영역이 발견될 때, 그것이 공간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세라핌천사에 싸인 대사가 멀리-떨어진 이 우주에 도착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세라핌천사에게 싸인 존재는 너희 시간과 유란시아 거리로 볼 때 초당 558,840 마일의 속도를 도저히 초과할 수 없다. 거대한 별, 역류, 그리고 우회로(迂廻路), 인력 접선들은 모두 한결같이, 그렇게 속도를 둔화시켜서 먼 여행에서 평균 속도는 초당 약 550,000마일이 될 것이다.

23:2.23 (260.3) 멀리 떨어진 지역우주에 도착하기까지 원주민 대사에게 수백 년이 소요될 때. 단독 메신저가 그곳에서 즉시, 대사로서 당분간 활동할 수 있도록 나가달라고 종종 요청을 받는다. 단독 메신저는 순식간에 나갈 수 있고, 중력 메신저처럼 시간과 공간에 독립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그런 셈이다. 또한 그들은 다른 환경에서 특별임무의 밀사로서 봉사한다.

23:2.24 (260.4)

7. 진리 계시자. 단독 메신저들은 진리를 계시하는 임무를 그들 계층의 가장 높은 신뢰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들은 초우주로부터 공간의 개별 행성에 이르기까지, 이 수용능력으로 언제라도 그리고 즉시 기능한다. 그들은 세계들과 체계들에게 진리 계시를 확대하도록 파송되는 위원회에 자주 배정된다.

제 3 장. 단독 메신저의 시간과 공간에서의 봉사

23:3.1 (260.5)

단독 메신저들은, 방송 서비스 또는 반영 기능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 중요하고도 긴급한 메시지들을 빨리 전하기 위한, 모든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완전하고도 속속들이 믿을 수 있는 개인성 중 최고의 유형이다. 그들은 특별히 시간요소가 들어있는 곳에서, 영역들의 영적 그리고 물질적 존재들에 도움을 주며 나오면서, 끝이 없는 다양한 임무 배정에서 봉사하고 있다. 초우주 권역의 봉사에 배정된 모든 계층 중에서,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가장 높고 가장 다재다능한 개인성구현된 존재들이다.

23:3.2 (260.6)

우주는 운송 목적을 위해 중력을 이용하는 영들로 넉넉히 공급되어 있다; 그들은 언제든지—즉시—어느

곳에든지 갈 수 있지만, 그들은 개인이 아니다. 중력 메신저 그리고 초월 기록자와 같은, 특정한 또 다른 중력 횡단자들은 개인적 존재이지만, 그들은 초우주 그리고 지역우주 관리행정자에게 활용될 수가 없다. 세계는 천사와 사람 그리고 높은 개인적 존재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다: 세라핌천사에 싸이지 않는 존재들의 속도 한계는 너희 시간과 거리로 초당 186,280 마일이다; 중도 창조체와 특정한 다른 이들은 종종 두 배의 속도—초당 372,560마일—에 이를 수 있고, 한편 세라핌천사와 다른 이들은 세 배의 속도, 초당 약 558,840마일의 속도로 공간을 지나갈 수 있다. 아무튼, 단독 메신저들을 제외하고는, 중력 횡단자들의 순간적인 속도와 세라핌천사들의 비교적 느린 속도 사이에서 기능하는, 운송이나 메신저 개인성은 아무도 없다.

23:3.3 (261.1) 그러므로 단독 메신저들은, 임무 완수에 개인성이 필수적인 곳, 그리고 다른 활용 가능한 유형의 개인성 메신저를 아무나 보내어야 할 경우가 생겨서, 시간 손실을 피해야 할 요구가 있는 곳의 그러한 상황에 파송되고 봉사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그들은 대우주의 병합된 우주적 흐름들과 동조할 수 있는 분명하게

개인성구현된 유일한 존재들이다. 공간을 지나갈 때의 그들의 속도는 개입되는 영향에서의 커다란 다양성에 좌우되지만, 이 임무를 완수하는 여행에서 나의 연관-동료 메신저는 너희 시간과 거리로 초당 841,621,642,000 마일의 속도로 진행했다고 기록이 보여주고 있다.

23:3.4 (261.2) 어떻게 영이 실제 개인적인 동시에 그러한 엄청난 속도로 공간을 지나갈 수 있는지 물질 유형의 마음에게 설명하는 일은 나의 능력을 전혀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들 단독 메신저들은 유란시아로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이 불가해한 속도로 실재적으로 왕래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로, 우주 관리-행정의 전체 경륜은 그 개인적 요소를 대부분 잃어버렸을 것이다.

23:3.5 (261.3) 단독 메신저들은 멀리 있는 공간 지역들, 대우주의 확립된 순환회로들 안에 포용되지 않은 영역들에 두루, 통신에서의 비상 선로로 기능할 수 있다. 한 명의 메신저가, 그렇게 기능할 때, 유란시아 천문학자들이 별들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처럼 약 100광년(光年) 떨어진 동료 메신저에게 공간을 통하여 신호를 보내거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사실이다.

23:3.6 (261.4)

초우주에서의 관련사들의 처리행위에서 우리와 협동하는 수많은 존재들 중에서, 실천적 도움을 주고 시간절약을 보조해주는 데에서 이들보다 더욱 중요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 공간의 우주들 안에서 우리는 시간의 장애를 주의해야만 한다; 따라서 단독 메신저들의 위대한 봉사로, 그들의 개인적 통신의 특권 때문에, 공간에 어느 정도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엄청난 통과 속도 덕분에, 시간에 거의 구애받지 않는다.

23:3.7 (261.5)

나는 단독 메신저가 형태를 갖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실제적이고 분명한 개인성들을 소유할 수 있는지 유란시아 필사자들에게 설명할 수 없다. 자연적으로 개인성과 연관될 수 있는 그 형태를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 존재들의 모든 고등 유형들에 의해 식별될 수 있는 영 현존을 소유하고 있다. 단독 메신저들은 충만한-성장 개인성의 모든 특권들과 결합된 형태 없는 영의 거의 모든 장점들을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등급의 존재들이다. 그들은 참된 개인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未)개인적 영 현시활동의 거의 모든 속성들을 자질로서 부여받았다.

23:3.8 (261.6) 일곱 초우주들 안에서, 대개—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시간과 공간의 장애로부터 창조체의 해방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그 모든 것은 그에 비례하여 개인성 특권은 적어지게 만든다. 단독 메신저들은 이 일반 법칙에서 제외된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에서, 영적 표현, 신성한 봉사, 개인적 사명활동, 그리고 조화우주 통신의 제한 없는 큰길의 그 어떤 그리고 그 모든 이용에서, 거의 모든 것이 제약받지 않는다. 만일 너희가 우주 관리-행정에서의 내가 체험한 빛 안에서 이들 비범한 존재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너희는 그들이 다재다능하게 협동하지 않는다면, 초우주 관련사들을 조화-협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3:3.9 (262.1) 우주가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지더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단독 메신저들은 아마 더 창조되지 않을 것이다. 우주들이 성장에 따라서, 확대되는 관리-행정 업무는 반드시 증가되어지는 다른 유형의 영 사명활동자들에 의하여, 그리고 주권자 아들과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창조체와 같은, 이들 새로운 창조계에서 지원되는 존재들이 맡을 것이다.

제 4 장. 단독 메신저의 특별한 사명활동

23:4.1 (262.2) 단독 메신저들은 모든 유형의 영 존재들을 위한 개인성 조화-협동자인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사명활동은 멀리-퍼지는 영적 세계의 모든 개인성들을 동족으로 만들도록 돕는다. 그들은, 모든 영 존재에서, 집단 정체성의식의 발전에 많이 기여한다. 모든 유형의 영 존재는,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모든 유형들 그리고 계층을 납득하고 형제우애관계를 가지도록 그러한 존재들의 능력을 육성시키는 단독 메신저의 특별한 집단에 의해 도움을 받는다.

23:4.2 (262.3) 단독 메신저들은 모든 유형과 계층을 조화-협동시키는—심지어는 주(主)우주 전반적-통제자의 아(亞)절대 체제와 접촉하기까지—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을 실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중 일부는 무한한 영에 의한 이들 메신저들의 창조는 어떤 면에서든 최극-궁극 마음에서의 공동 행위자의 증여와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23:4.3 (262.4) 최종자와 파라다이스 시민이 “시간과 영원의 자녀”의 삼위일체화구현—최극-궁극자의 계시되지 않은 마음 잠재들을 포함하는 활동행위—에 협동할 때 그리고

분류되지 않은 그러한 개인성이 대관별로 파송될 때, 단독 메신저는(그러한 신(神) 마음의 증여에 대한 추측된 개인성 반향) 항상 그러한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에게 수호-동행자로 배정된다. 이 메신저는 자신이 배정받은 세계로 새로운 운명의 아들을 따라가며 더 이상 대관별을 떠나지 않는다. 시간과 영원의 자녀의 운명에 그렇게 배속되면, 단독 메신저는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의 독자적인 감독에 언제까지나 전환된다. 그러한 색다른 관계적-연합의 미래가 어떻게 될 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독특한 개인성들의 오랜 세월에 걸친 이들 동반자관계들이 대관별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지만, 어떤 쌍도 거기를 떠난 적이 없다.

23:4.4 (262.5) 단독 메신저들은 숫자가 고정되어 있지만, 운명의 아들들의 삼위일체화구현은 무제한 기법인 것처럼 보인다. 삼위일체화된 각각의 운명의 아들이 그에게 배정된 단독 메신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 메신저들의 공급이 중단될 것처럼 우리에게 보인다. 대우주에서 누가 그들의 일을 맡을 것인가?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 가운데에서 새로운 개발되는 어떤 것이 그들의 봉사를 대신할 것인가? 먼 미래에는 대우주가

삼위일체-기원 존재들에 의해 대부분 관리-운영되고, 한편으로는 단일-기원 그리고 2원(二元)-기원 창조체들은 외부 공간 영역 속으로 전환될 것인가? 만일 메신저들이 그들의 예전의 봉사에 돌아온다면, 이들 운명의 아들은 그들과 동행할 것인가? 단독 메신저들의 공급이 이들 운명의 아들의 수호-동행자들로 다 흡수되어버리면 최종자와 파라다이스-하보나인 사이의 삼위일체화구현은 중단될 것인가? 우리의 유능한 단독 메신저들 모두가 대관별에 집중되는 것일까? 이들 비범한 영 개인성들이 삼위일체화된 이들 계시되지 않은 운명의 아들과 영원히 연관하게 될 것인가? 대관별에 모이고 있는 이들 쌍들이 막강한 신비 존재들,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의 단독 지도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에 어떤 의의(意義)를 우리가 덧붙일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과 그리고 유사한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내어 놓고, 수많은 다른 조직의 천상의 존재들에게도 묻고 있지만,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한다.

23:4.5 (263.1) 이 활동행위는, 우주 관리-행정에서의 많은 유사 사건들과 함께, 대우주의 성원들이 심지어 하보나와 파라다이스의 성원들까지도, 지금 외계 공간 영역에서

두루 벌어지고 있는 광대한 에너지 진화에 조화-협동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참조하면서, 어떤 분명하고도 특별한 재조직을 진행하고 있음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23:4.6 (263.2) 우리는, 영원한 과거가 체험해 온 모든 것을 멀리 초월할 우주 진화의 현상들을, 영원한 미래가 목격할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하듯이, 계속-높아가는 기대감과 예리한 흥미를 가지고 그러한 엄청난 모험여행을 기다리고 있다.

23:4.7 (263.3) [유버사로부터 온 신성한 조언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24 편 무한한 영의 높은 개인성

24:0.1 (264.1) 유버사에서 우리는 공동 창조자의 모든 개인성들 그리고 실존개체들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무한한 영의 높은 개인성, 공간의 메신저 무리, 그리고 시간의 사명활동 영인데, 그들은 필사자 진보라는 상승 기획에 해당하는 의지 창조체들을 가르치고 사명활동 일에 관여하는 영 존재들이다.

24:0.2 (264.2) 이 글에서 언급되어 있는 저들 무한한 영의 높은
개인성들은 일곱 부문에서 대우주에 두루 기능한다:

24:0.3 (264.3) 1. 단독 메신저

24:0.4 (264.4) 2. 우주 순환회로 감독자

24:0.5 (264.5) 3. 인구조사 지도자

24:0.6 (264.6) 4. 무한한 영의 개인 도움자

24:0.7 (264.7) 5. 연관-동료 검열자

24:0.8 (264.8) 6. 배정된 파수자

24:0.9 (264.9) 7. 졸업생 안내자

24:0.10 (264.10) 단독 메신저와 순환회로 감독자와 인구조사
지도자 그리고 개인 도움자는 반(反)중력의 엄청난 자질의
소유가 그 특징이다. 단독 메신저에게는 알려진 일반적
본부가 없으며; 그들은 우주들의 우주를 떠돌아다닌다.
우주 순환회로 감독자와 인구조사 지도자들은 초우주의
수도에 본부를 유지하고 있다. 무한한 영의 개인
도움자들은 중앙에 있는 빛의 섬에 주둔한다. 연관-동료
검열자 그리고 배정된 파수자들은 지역우주들의 수도에

그리고 지역우주를 구성하는 체계들의 수도에 각각 주둔하고 있다. 졸업생 안내자들은 하보나 우주 안에 거주하고 있고 그것의 십 억 세계에서 기능한다. 이들 높은 개인성 대부분이 지역우주 안에 주둔하고 있지만, 그들은 진화 영역 관리-행정에 유기적으로 배속되어 있지는 않다.

24:0.11 (264.11) 이 집단을 구성하는 일곱 등급들 중에서, 오직 단독 메신저만이 그리고 아마 개인 도움자도 우주들의 우주를 범위로 삼는다. 단독 메신저들은 파라다이스로부터 밖으로 나아가면서 마주치게 된다: 하보나 순환회로들에 두루, 초우주 수도로 그리고는 거기에서 바깥쪽으로 구역들에 두루, 그리고 지역우주를 거치고 심지어는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도 마주치게 된다. 단독 메신저들이 무한한 영의 높은 개인성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기원과 본성과 봉사에 대해서는 이전의 글에서 이미 다루었다.

제 1 장. 우주 순환회로 감독자

24:1.1 (265.1) 공간의 광대한 힘 흐름들과 영 에너지의 순환회로들은 자동으로 작용하는 듯 보일지 모르고; 그것들이 방해나 장애 없이 기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다. 이들 모든 거대한 에너지 체계는 통제되고 있다; 그것들은 지능적 감독에 종속되어 있다. 우주 순환회로 감독자들은 순전히 물리적 또는 물질적 에너지 영역—우주 힘 지도자들의 권역—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영적 에너지의 순환회로들과, 그리고 지능 창조체 중 모론시아 또는 과도기 유형과 고도로 발달된 영적 존재, 둘 모두의 유지에 필수적 요소인, 그런 변형된 순환회로들과도 관련된다. 감독자들이 에너지 순환회로와 신성의 초(超)본질에 기원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은 시간과 영원의 비교적 높은, 모든 순환회로들, 그리고 대우주 구성 부분들의 관리-행정에 관련되는, 모든 상대적 영 순환회로에 상관이 있다. 그들은 파라다이스 섬 밖에 있는 그러한 모든 영-에너지 순환회로에 지도를 내리고 조종한다.

24:1.2 (265.2) 우주 순환회로 감독자들은 무한한 영의 독점적 창조체이며, 그들은 공동 행위자의 대리자로서 단독으로 기능한다. 그들은 봉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계층으로 개인성구현 된다:

24:1.3 (265.3) 1. 최극 순환회로 감독자.

24:1.4 (265.4) 2. 연관-동료 순환회로 감독자.

24:1.5 (265.5) 3. 2차 순환회로 감독자.

24:1.6 (265.6) 4. 3차 순환회로 감독자.

24:1.7 (265.7) 하보나의 최극 감독자들과 일곱 초우주의 연관 감독자들은 완벽한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계층들은 더 이상 창조되지 않는다. 최극 감독자들은 숫자가 일곱이며 일곱 하보나 순환회로들을 선도(先導)하는 세계에 주둔하고 있다. 일곱 초우주의 순환회로들은 일곱 연관 감독자로 구성된 훌륭한 집단에게 맡겨져 있는데, 그들은 일곱 최극집행자들의 세계인 무한한 영의 일곱 파라다이스 구체 위에 본부를 두고 있다. 그들은 이곳에서 공간의 초우주들의 순환회로들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24:1.8 (265.8) 영의 이들 파라다이스 구체 위에서 일곱 연관-동료 순환회로 감독자 그리고 최극 힘 중심 중 첫 번째 계층이, 최극집행자의 지도 아래에서 연락을 일으키어, 결국 일곱 초우주를 향해 통과해 나아가는 모든 물질적 그리고 영적(靈的) 순환회로들이 하위(下位)-파라다이스 조화-협동으로 귀결되도록 한다.

24:1.9 (265.9) 각 초우주의 본부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의 지역우주를 위한 2차 감독자들이 주둔하고 있다. 대구역과 소구역은 초(超)정부의 행정-관리적 부서들이지만, 이들 영-에너지 감독의 문제에는 관련되지 않는다. 나는 대우주 안에 얼마나 많은 2차 순환회로 감독자들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유버사에는 이들 존재가 84,691명 있다. 2차 감독자들은 계속 창조되고 있다; 때때로 그들이 최극집행자들의 여러 세계에 70명의 집단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우리 관할권에 속한 새롭게 진화하는 우주들에 대해, 우리가 영 에너지와 연락 힘의 분리된 순환회로들의 설치를 주선해감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그들을 확보한다.

24:1.10 (265.10) 3차 순환회로 감독자들은 모든 지역우주의 본부 세계에서 기능한다. 이 계층은, 2차 감독자들처럼, 계속되는 창조체에 속하는데, 700명의 집단으로 창조된다. 그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지역우주에 배정된다.

24:1.11 (266.1) 순환회로 감독자들은 그들의 특정임무를 위해 창조되며, 그들은 그들이 기원적으로 임명된 집단 속에서 영원토록 봉사한다. 그들은 봉사에서 교대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이 기원적으로 배정된 영역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한다. 예를 들면: 3차 순환회로 감독자 572,842번은 너희 지역우주가 구상된 초기 이래로 구원자별에서 계속 기능해 왔고, 그는 네바돈의 미가엘의 개인적 참모진의 일원이다.

24:1.12 (266.2) 지역우주 또는 그보다 높은 우주들에서 활동하든지 안하든지, 순환회로 감독자들은 모든 영 메시지들의 전달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개인성들의 통행을 위하여 적당한 순환회로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것을 지도한다. 순환회로를 감독하는 그들의 활동에서 이들 유능한 존재들은 우주들의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대리자, 기세, 그리고 개인성들을 활용한다. 그들은 계시되지 않은 “회로 통제의 높은 영 개인성들”을 사용하며 무한한 영의 개인성들로 구성된 수많은 참모진들에 의해 훌륭하게 도움을 받는다. 만약에 행성영주가 우주 아버지 그리고 그의 대리자 아들에 대항하여 반역하게 되면, 진화 세계를 고립시키는 일을 그들이 한다. 그들은 보다 높은 영 계층의 특정 우주 순환회로로부터, 어떤 세계든지 내던져 버릴 수 있지만, 그들은 힘 지도자들의 물질적 흐름들은 무력화 시킬 수 없다.

24:1.13 (266.3) 우주 순환회로 감독자들은, 우주 힘 지도자들이 물질적 순환회로에 대해 갖는 것과 똑같이, 영 순환회로들에 대한 어떤 관계를 갖는다. 두 계층들은 상호 보완적이며, 창조체에 의해 통제될 수 있고, 조종될 수 있는 모든 영 그리고 모든 물질 순환회로를, 함께 감독한다.

24:1.14 (266.4) 힘 지도자들이 물리적-에너지와 연관하는 그러한 마음—기계적 마음—위상에 대하여 일정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환회로 감독자들은 영과 연관하는 그러한 여러 마음 순환회로에 대한 일정한 감시를 행사한다. 일반적으로 각 계층의 기능들은 다른 계층과의 연락에 의하여 확대되지만, 순수 마음의 순환회로들은 그 둘 중 어느 편의 감독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이들 두 계층은 조화-협동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모든 다양한 수고에 있어서 우주순환회로 감독자들은 일곱 최극 힘 지도자와 그들의 하급자들에게 종속된다.

24:1.15 (266.5) 순환회로 감독자들이 그들 각각의 계층들 안에서 전반적으로 똑같은 반면, 그들은 모두 뚜렷한 개별존재들이다. 그들은 참된 개인적 존재들이지만, 전체 우주 실존에서 어떤 다른 유형의 창조체에서도 만날 수

없는 아버지가-자질로서 부여하지-않은-부류의 개인성 유형을 갖고 있다.

24:1.16 (266.6) 비록 너희가 파라다이스를 향하여 안쪽으로 여행하면서 그들을 알아보고 또 알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들과 어떤 개인적 관계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순환회로 감독자들이며, 그들은 엄격하게 그리고 유능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그들은 그들의 감독에 종속된 순환회로들과 관련되는 그러한 활동들의 감시를 맡고있는 개인성들과 실존개체들하고만 상대한다.

제 2 장. 인구조사 지도자

24:2.1 (266.7) 우주 지능의 조화우주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창조체들의 현존과 행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들의 우주 안에는 모든 의지 창조체들을 계속 계수(計數) 하는 독립된 방법이 작용하고 있다.

24:2.2 (266.8) 인구조사 지도자들은 무한한 영의 특별하고도 완성된 창조이며, 그들이 존재하는 숫자는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들은 초우주들의 반영성 기법과 완전한 동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으며, 동시에 그들은 지능적 의지에 개인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다. 이

지도자들은, 충분히-납득되지 않는 기법에 의해, 대우주의 어느 부분에서든지 의지의 탄생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중앙 창조와 일곱 초우주들의 어느 부분에서든지 모든 의지적 창조체들의 숫자, 본성 그리고 행방을 우리에게 항상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파라다이스에서는 기능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 파라다이스에서는 지식이 선천적이다; 신(神)들은 모든 것을 안다.

24:2.3 (267.1) 일곱 인구조사 지도자들이 하보나에서 활동하는데, 한 명의 존재가 각 하보나 순환회로의 선도(先導) 세계에 주둔한다. 영의 파라다이스 세계들에 있는 이 일곱 계층들과 예비자들 계층들을 제외하고, 모든 인구조사 지도자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관할권 아래에서 기능한다.

24:2.4 (267.2) 한 명의 인구조사 지도자가 각 초우주의 본부의 의장이 되는 반면, 그러한 우두머리 지도자 밑에, 각 지역우주마다 한 명씩, 수많은 숫자가 있다. 이 계층에 속한 모든 개인성들은 하보나 선도(先導) 세계들과 일곱 초우주 우두머리들을 제외하고 동일하다.

24:2.5 (267.3) 일곱 번째 초우주에는 100,000명의 인구조사 지도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지역우주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그들 전체로 구성된다; 그것은 전체 오르본톤 지도자들의 초우주 우두머리인 유사시아 개인적 참모진을 포함하지 않는다. 유사시아는, 다른 초우주 우두머리들처럼, 지능 의지의 등록에 직접적으로 조율되지 않는다. 그는 오르본톤 우주들 안에 주둔하는 자신의 종속들에게 독자적으로 조율된다; 그래서 그는 지역 창조계들의 본부들로부터 들어오는 보고들을 합계하는 놀라운 개인성으로서 행동한다.

24:2.6 (267.4) 때때로 유버사의 공식 기록자들은, 유사시아의 개인성 위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는 그대로, 초우주의 지위를 그들의 기록에 남긴다. 그러한 인구조사 자료는 초우주에 토착적인 것이다; 이 보고들은 하보나에도 전달되지 않고 파라다이스에도 보내지지 않는다.

24:2.7 (267.5) 인구조사 지도자들은 의지 기능의 사실을 기록하는 정도에서만 인간 존재들—다른 의지 창조체들과의 경우처럼—에게 관여한다. 그들은 너희의 삶과 그 행위들에 대한 기록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기록하는 개인성들이 아니다. 오르본톤의 81,412번인, 현재 구원자별에 주둔하고 있는 네바돈의 인구조사 지도자는 바로 이 순간에 이곳 유란시아에서의 너희 삶 현존을 개인적으로 의식하고 알고 있다; 그는 너희가 의지적 창조체로서 기능하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 너희 죽음을 확인하는 기록을 잘 제공할 것이다.

24:2.8 (267.6) 인구조사 지도자들은 의지의 첫 번째 행동이 수행될 때 새로운 의지적 창조체의 실존을 등록 한다; 그들은 의지의 마지막 행위가 일어나게 될 때 의지적 창조체의 죽음을 표시한다. 비교적 높은 일정한 동물들의 반응 속에서 관찰되는, 의지의 부분적 창발은 인구조사 지도자들의 권역에 속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실한 의지적 창조체들 이외에는 계수하지 않으며, 의지 기능에만 응답한다. 그들이 의지 기능을 정확히 어떻게 등록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24:2.9 (267.7) 이 존재들은 항상 인구조사 지도자로 존재해 왔으며, 또 항상 그럴 것이다. 그들은 우주 활동의 어떤 다른 분야에서든지 비교적 쓸모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기능함에 있어 실패가 없으며; 불이행도 않고 왜곡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놀라운 힘과 불가해한 특권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인적 존재이다; 그들은 인식 가능한 영 현존 그리고 형태를 갖고 있다.

제 3 장. 무한한 영의 개인 도움자

24:3.1 (268.1) 우리는 개인 도움자들의 창조 시기 또는 방법에 대하여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숫자는 대군을 이루겠지만, 그것은 유버사에 있는 기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들의 활동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기초한 전통적 추론에 의거하여, 나는 그들의 숫자가 1조(兆)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우리는 무한한 영이 이 개인 도움자들의 창조에 있어서 숫자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견지한다.

24:3.2 (268.2) 무한한 영의 개인 도움자들은 신(神)의 셋째 개인의 파라다이스 현존에 대한 독점적 보조를 위하여 존재한다. 비록 무한한 영에게 직접적으로 배정되고 파라다이스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창조의 끝부분까지 번쩍이며 이리저리 움직인다. 공동 창조자가 확장하는 순환회로들 중 어디든지, 이 개인 도움자들이

무한한 영의 명령을 시행할 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들은 단독 메신저들이 하는 것과 거의 똑같이 우주를 지나가지만 메신저들과 같은 그러한 감각에서는 개인이 아니다.

24:3.3 (268.3) 개인 도움자들은 모두 동등하고 똑같으며; 그들은 어떤 개별존재성의 차이도 나타내지 않는다. 공동 행위자가 그들을 참된 개인성들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실제 개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어려운 일이다; 그들은 다른 영(靈) 존재들에게 어떤 영 현존을 현시하지 않는다. 파라다이스-기원 존재들은 이 도움자들의 근접성을 항상 인식하지만; 우리는 어떤 개인성 현존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한 현존-형체의 결여가 그들로 하여금 신(神)의 셋째 개인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분명하다.

24:3.4 (268.4) 무한한 영 안에서 기원되는 영 존재들의 계시된 계층들 전체 중에서, 개인 도움자들은 너희가 파라다이스를 향해 안쪽으로 상승하면서 만나게 될 거의 유일한 존재들이다.

제 4 장. 연관-동료 검열자

24:4.1 (268.5) 무한한 영의 일곱 파라다이스 구체에 있는 일곱 최극집행자들은 일곱 초우주들을 위한 최고 관리인들의 행정-관리적 기구로서 집단으로 기능한다. 연관-동료 검열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지역우주에 대한 최극집행자의 권한에 대한 개인적 체현이다. 지역 창조계의 관련사들에 대한 이 높은 관찰자들은 파라다이스의 일곱 주(主) 영과 무한한 영의 공동 자손이다. 영원에 가까운 시절에, 700,000명이 개인성구현되었고, 그들의 예비무리단은 파라다이스에 주둔하고 있다.

24:4.2 (268.6) 연관-동료 검열자들은 일곱 최극집행자들의 직접적 감독 아래에서 활동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지역우주에게 그들의 개인적이고도 힘 있는 대표자들이 된다. 한 명의 검열자가 각 지역 창조의 본부 구체에 주둔하며, 거주하는 연합으로 늘 계신이의 가까운 동료이다.

24:4.3 (268.7) 연관-동료 검열자들은 오직 그들의 종속들,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로 이루어진 지역체계들의 수도들에 주둔하는 배정된 파수자들로부터 보고와 추천을 접수하여

받아들이는 반면, 그들은 그들의 직속 상급자, 관련된 초우주의 최극집행자에게만 보고한다.

제 5 장. 배정된 파수자

24:5.1 (268.8) 배정된 파수자들은 일곱 최극집행자들의 조화-협동하는 개인성들 그리고 연락 대표자들이다. 그들은 무한한 영에 의해 파라다이스에서 개인성구현되었고 그들의 임무의 특별한 목적들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들은 숫자가 고정되어 있으며, 정확하게 70억 명이 실존하고 있다.

24:5.2 (269.1) 연관-동료 검열자가 지역우주 전체에게 일곱 최극집행자들을 대표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지역 창조의 10,000개 체계들마다 배정된 파수자가 있는데, 그는 멀리-떨어진 그리고 모든 일곱 초우주들의 관련사를 위한 초(超)통제의 최극 관리기관의 직접 대표자로서 활동한다. 오르본톤의 지역체계 정부들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 파수자들은 일곱 번째 초우주의 조화-협동자인 7번 최극집행자의 직접적인 권한 아래에서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행정-관리적 조직에서

지역우주에 임명된 모든 파수자들은 우주 본부에 주둔하는 연관-동료 검열자에게 종속되어 있다.

24:5.3 (269.2) 지역 창조에서 배정된 파수자들은 체계에서 체계로 이동하며, 돌아가며 봉사하는데, 그들은 대개 지역우주 시간으로 매 1,000년마다 바뀐다. 그들은 체계 수도에 주둔하는 가장 높은 계급의 개인성들에 속하지만, 체계 관련사와 관련된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지역체계 안에서 그들은 진화 세계 출신인 24명의 행정-관리자들의 직권상 우두머리로서 봉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거의 그들과 만나지 않는다. 파수자들은 그들이 배정된 체계들의 복지와 형편에 관계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그들의 우주의 연관-동료 검열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알 수 있게 하는 일에 거의 배타적으로 관여되어 있다.

24:5.4 (269.3) 배정된 파수자들과 연관-동료 검열자들은 초우주 본부를 통하여 최극집행자들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그들은 관련된 초우주의 최극집행자에게만 의무를 이행한다; 그들의 활동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관리-행정과 뚜렷이 구분된다.

24:5.5 (269.4) 최극집행자들, 연관-동료 검열자들, 그리고 배정된 파수자들은, 전(全)천사들 그리고 계시되지 않은 개인성들의 무리와 함께, 효과적이고 직접적이며 집중되었지만 멀리-퍼지는, 물체들과 존재들의 대우주 전체에 대한 자문과 행정-관리적 조화-협동의 체계를 구성한다.

제 6 장. 졸업생 안내자

24:6.1 (269.5) 졸업생 안내자들은 여러 시대들의 목표에 대한 필사자의 달성 즉: 하느님, 휴식, 그리고 그 다음의 완전하게 된 봉사의 영원에 너무나도 근본적인 기술적 안내와 영적 훈련의 고등 대학을 후원하고 수행한다. 매우 개인적인 이 존재들은 그들의 일의 본질과 목적에 따라 그들의 이름이 정해진다. 그들은 시간의 초우주들로부터의 필사자 졸업생들을 안내하여 최종의 무리단과 파라다이스에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상승하는 순례자들이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교훈과 훈련의 하보나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임무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다.

24:6.2 (269.6) 나는 이 졸업생 안내자들의 역할을 너희에게 말하지 말도록 금지되지 않았지만, 내가 그들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개념을 물질적 마음에게 적절하게 묘사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영적이기 때문이다. 맨션세계들에서, 너희 시야가 확장되고 너희가 물질적 비교의 족쇄로부터 해방된 후에, 너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그리고 인간 마음속에 들어온 적이 없는 개념들"인 실체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한 영원한 진실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하느님이 준비해 오신" 그 사물들의 의미를 너희가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 너희는 너희의 시야와 영적 이해력의 범위에서 항상 그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24:6.3 (270.1) 졸업생 안내자들은 하보나 세계들의 일곱 순환회로들을 통하여 시간의 순례자들을 선도(先導)하는 일에 참여한다. 외부 하보나 순환회로의 접수 세계에 너희가 도착할 때 반겨주는 그 안내자는 천상의 순환회로들에서의 너희 생애에 두루 너희와 계속 동행하게 될 것이다. 비록 너희가 수십억 개 세계들에 머무는 동안 다른 개인성들과 수도 없이 연관관계를 가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졸업생 안내자는 너희의 하보나 진보의 끝까지 너희를 따라갈 것이고 시간의 마지막 수면, 파라다이스 목표지를 향한 영원 변환의 잠을

너희가 자는 것을 목격할 것인데, 그곳에서 깨어나게 되면, 너희는 너희를 환영하도록 배정되고 또한 너희가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의 일원으로 가입될 때까지 너희와 함께 남아 있게 될지도 모르는 파라다이스 동행자의 영접을 받게 될 것이다.

24:6.4 (270.2) 졸업생 안내자들의 숫자는 인간 마음의 파악하는 힘을 벗어나며, 그들은 계속 출현한다. 그들의 기원은 신비한 어떤 것이다. 그들은 영원으로부터 존재되어온 것이 아니며; 그들은 필요에 따라 신비스럽게 나타난다. 온 세월에 걸쳐서 첫 번째 필사자 순례자가, 그의 여정이 중앙 창조의 외부 지대에 이르렀던 까마득히-먼 날까지는 중앙우주의 모든 영역들 안에서 졸업생 안내자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 순례자가 외부 순환회로의 선도(先導) 세계에 처음 도착한 순간, 순례자는 말보리안의 친절한 영접을 받았는데, 그는 첫 번째 졸업생 안내자이자, 지금은 그들의 최극 협의회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광대한 교육 조직의 지도자이다.

24:6.5 (270.3) 하보나의 파라다이스 기록부의, “졸업생 안내자”라고 명명된 부분에 이러한 첫 기록이 보인다:

24:6.6 (270.4)

“이 계층의 첫 번째인 말보리안이 하보나의 순례자 발견자를 환영하고 가르쳤으며, 모든 개인성의 근원이자 운명의 바로 그 현존 속에 그가 설 때까지 그리고 그 후 연이어서 파라다이스에 이르는 영원의 문턱을 넘어갈 때까지 초기 체험의 외부 순환회로들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한 회로 한 회로 그를 행위로 이끌었다.”

24:6.7 (270.5)

아득히 먼 그 때 나는 유버사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봉사에 배정되었었으며, 우리 모두는 우리 초우주로부터의 순례자들이 결국에는 하보나에 도달할 것을 확신하면서 기쁨을 향유하였다. 공간의 진화적 창조체들이 파라다이스에 도달할 것이라고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배워 왔었으며, 첫 번째 순례자가 실재적으로 도착할 때 모든 시간의 감격스러움이 천상의 궁정들을 휩쓸었다.

24:6.8 (270.6)

하보나의 이 순례 발견자의 이름은 그랜환다이며, 그는 1번 초우주 안에 있는 1,131번 지역우주의 62번 별자리에 있는 84번 체계의 341번 행성으로부터 흩어져 나왔다. 그의 도착은 우주들의 우주의 방송 서비스를 설립하기 위한 신호였다. 그때까지는 초우주들과

지역우주들의 방송들만이 작동되어 왔지만, 그러나 하보나의 입구에 그랜환다가 도착하였다는 발표는 “영광스러운 공간 보고서들”이 개시됨을 알리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이름 지어진 것은 상승하는 실존의 목표에 도달하게 된 첫 번째 진화적 존재들의 하보나 도착을 첫 우주 방송이 보고하였기 때문이었다.

24:6.9 (270.7) 졸업생 안내자들은 하보나 세계를 결코 떠난 적이 없으며;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졸업생 순례자들의 봉사에 전념되어 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너희의 생존과 상승을 가져오도록 고안된 일정한 그리고 모든 것이-완전하게 된 계획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언젠가 이 고귀한 존재들을 대면하여 만나게 될 것이다.

제 7 장. 졸업생 안내자의 기원

24:7.1 (270.8) 진화는 중앙우주의 질서가 아니지만, 우리는 졸업생 안내자들이 중앙우주 창조체들 중 완전하게 된 또는 더욱 체험된 다른 조직의 성원들, 하보나 봉사원들이라고 믿는다. 졸업생 안내자들은 우주적 사명활동의 하보나 봉사원으로서 초우주 영역들 안에서 실재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이 문화를 그들이 획득해

왔다고 우리가 확신할 만큼 상승 창조체들을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폭넓은 동정심과 능력을 보여준다. 만일 이 관점이 틀린다면, 선배 봉사원들 또는 더 많은 체험을 가진 봉사원들의 계속적인 사라짐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24:7.2 (271.1) 봉사원은 그전에 가졌던 그러한 여러 임무들을 수행하면서 초우주 임무를 위해 하보나로부터 오랫동안 떠나게 될 것이며, 고향으로 돌아와 파라다이스 중앙 빛남과 "개인적 접촉"을 갖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며, 빛나는 개인들에 의해 포용될 것이며, 그의 영 동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사라지고 자신과 같은 종류의 그들 가운데에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24:7.3 (271.2) 초우주 봉사로부터 돌아오면, 하보나 봉사원은 수많은 신성한 포용들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곳으로부터 단순히 고양된 봉사원으로 떠오른다. 빛나는 포용을 체험하는 것은, 봉사원이 반드시 졸업생 안내자로 변환되어야만 함을 의미할 필요는 없지만, 신성한 포용을 성취한 그들 중 거의 4분의 1은 영역들의 봉사로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24:7.4 (271.3) 고등(高等)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연속된 기록들이 보인다:

24:7.5 (271.4) “수드나라는 이름을 가진 하보나의 842,842,682,846,782번 봉사원이 초우주 봉사로부터 돌아왔고, 파라다이스에서 받아들여졌으며, 아버지를 알았고, 신성한 품으로 들어갔고, 존재하지 않는다.”

24:7.6 (271.5) 그러한 기록이 나타날 때, 그러한 봉사원의 생애가 마감된다. 그러나 세 순간 동안 (너희 시간으로 3일보다 약간 짧은) 새로 태어난 졸업생 안내자가 “자발적으로” 하보나 우주의 외부 순환회로에 나타난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없이, 이동 중에 있는 그들로 인하여 생기는 미세한 차이를 살펴보면 졸업생 안내자들의 숫자는 사라진 봉사원들의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24:7.7 (271.6) 졸업생 안내자들이 하보나 봉사원으로부터 진화된다고 추측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안내자들 그리고 그들과 연관된 봉사원들이 어김없이 그렇게 특별한 애착을 갖는 경향이다. 별도의 계층으로 생각되는 이 존재들이 서로 납득하고 동정심을 갖는 그

방법은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그들의 상호 헌신을 목격하는 일은 기분을 좋게 하고 영감을 준다.

24:7.8 (271.7) 일곱 주(主) 영들 그리고 연관된 일곱 최극 힘 지도자들 각각은 그가 아직 개인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최극존재의 마음 잠재의 그리고 힘 잠재의 개인적 저장소들이다. 그리고 이 파라다이스 동료들이 하보나 봉사원을 창조하도록 협동할 때, 후자(後者)는 최극위의 일정한 위상들 속에 선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실재성에서 하보나 봉사원들은 시간-공간 권역들에서의 진화적 잠재성들의 완전한 중앙우주 안에서의 반영이며, 이러한 모든 것은 봉사원이 변환과 재-창조를 겪을 때 드러내어진다. 우리는 이 변환이 분명히 최극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무한한 영의 의지에 응답하여 일어난다고 믿는다. 졸업생 안내자들은 최극존재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체험적 신(神)이 이들 존재들이 실존하게 된 그러한 활동행위들 속에 어떤 면에서 관련되어 있다고 추측한다.

24:7.9 (271.8)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지금 횡단하고 있는 하보나는 그것이 그랜환다의 시대 이전에 그러하였던

중앙우주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하보나 순환회로들에의 필사자 상승자들의 도착은 중앙 그리고 신성한 창조의 조직 속에서의 전면적인 변형들, 일곱 초우주들로부터 그의 체험적 자녀들 중 첫 번째가 도착하는 것에 응답하여 최극존재—진화적 창조체들의 하느님—에 의해 반드시 시작되는 변형들을 개시하였다. 졸업생 안내자들의 출현은, 3차 초(超)천사의 창조와 함께, 최극자 하느님의 이 행위들을 암시한다.

24:7.10 (271.1) [유버사의 신성한 조언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25 편 공간의 메신저 무리

25:0.1 (273.1) 무한한 영의 계보 중 중간에 위치한 것은 공간의 메신저 무리이다. 이 다재다능한 존재들은 높은 개인성들 그리고 사명활동 영들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그 메신저 무리는 다음과 같은 계층의 천상의 존재들을 포함한다:

25:0.2 (273.2) 1. 하보나 봉사원.

25:0.3 (273.3) 2. 우주화해자.

25:0.4 (273.4) 3. 기술 충고자.

25:0.5 (273.5) 4. 파라다이스 기록의 보호관리자.

25:0.6 (273.6) 5. 천상의 기록자.

25:0.7 (273.7) 6. 모론시아 동행자.

25:0.8 (273.8) 7. 파라다이스 동행자.

25:0.9 (273.9) 열거된 일곱 집단들 중에서, 오직 셋만이—봉사원들, 화해자들, 그리고 모론시아 동행자들—그렇게 창조되었다; 나머지 넷은 천사 계층의 달성 차원들을 대변(代辯)한다. 선천적인 본성과 달성된 지위에 따라서, 그 메신저 무리는 우주들의 우주 안에서 다양하게 봉사하지만, 그들이 배정된 그 영역들을 통치하는 자들의 지도에 항상 복종한다.

제 1 장. 하보나 봉사원

25:1.1 (273.10) 봉사원이라고 명명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우주의 이 “중도(中途) 창조체들”은 그 말의 경멸적인 의미를 담은 하인들이 아니다. 영적 세계들에는 그러한 것이 시시한 일이 아니며; 모든 봉사는 신성하고 기분 좋은 일이다; 비교적 높은 계층의 존재들이 비교적 낮은 실존 계층들을 내려다보지도 않는다.

25:1.2 (273.11) 하보나 봉사원은 일곱 주(主) 영들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들, 일곱 최극 힘 지도자들의 공동창조적 작품이다. 이러한 창조적 협동은 진화적 우주들 안에 있는 2원(二元) 계층의 긴 재생산 목록들을 위한 원형들이 되기에 가장 근접하게 되는데, 위로는 창조자 아들-창조 영 연락에 의한 빛나는 새벽별의 창조로부터 아래로는 유란시아와 같은 세계들에서의 성적(性的) 출산에까지 이른다.

25:1.3 (273.12) 봉사원들의 숫자는 엄청나며, 항상 더 많이 창조되고 있다. 그들은 파라다이스의 가장 북쪽 구역에 있는 그들의 공동 경기장에서 주(主) 영들과 최극 힘 지도자들의 조합 이후 세 번째 순간에 1,000명 단위로 나타난다. 네 번째 봉사원마다 다른 경우보다 더 물질적인 유형을 가지며; 다시 말하자면, 각 1,000명마다, 750명은 영 유형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250명은 본질적으로 반(半)-물리적이다. 이 네 번째 창조체들은 어느 정도 물리적 존재들의 계층에 해당되는데(하보나 의미로는 물질적), 주(主) 영들 보다는 물리적 힘 지도자들을 더 닮는다.

25:1.4 (274.1) 개인성 관계들 안에서, 비록 유란시아에서는 지금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을 지배한다; 하보나 봉사원의 생산에 있어서는 영 지배의 법칙이 우세하다; 확정된 비율로 한 명의 반(半)물리적 존재마다 세 영적 존재들이 산출된다.

25:1.5 (274.2) 새롭게 창조된 봉사원들은 모두, 새롭게 출현하는 졸업생 안내자들과 함께, 일곱 하보나 순환회로들 각각에서 선배(先輩) 안내자들이 계속해서 행위로 이끄는 훈련 과정들을 통과한다. 봉사원들은 그 때 그들이 가장 잘 적응되는 활동들에게 배정되며, 그 후로 그들은 두 유형들—영적 그리고 반-물리적—이 되는데 이 다재다능한 존재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 비교적 높은 집단들 또는 영(靈) 집단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에 대한 봉사에 그리고 일곱 주(主) 영들의 활동에 선택적으로 배정된다. 그들은 일곱 초우주들의 본부 구체들을 돌고 있는 연구(研究) 세계들에서 봉사하도록 때때로 큰 무리를 지어 보냄을 받는데, 그 세계들은 하보나의 순환회로들에게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의 상승하는 혼들의 최종적 훈련 그리고 영적 문화에 헌신되어 있다. 영 봉사원들 그리고

더욱 물리적인 그들의 동료들 모두는, 하보나를 달성한
그리고 파라다이스 달성을 추구하는 상승하는 창조체들의
다양한 계층들에 대한 도움과 가르침에 있어서, 졸업생
안내자들의 보좌관들 그리고 연관-동료들로 지명되기도
한다.

25:1.6 (274.3) 하보나 봉사원과 졸업생 안내자들은 그들의 일에
초월적인 헌신을 그리고 서로를 위한 감동적인 애정,
너희가 오직 인간 사랑의 현상으로서만 납득할 수 있는,
그러나 전혀 영적인 애정을 현시한다. 봉사원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듯이, 중앙우주의 한계를 넘어서 임무를 띠고
파송될 때, 안내자들과 봉사원들의 이별에는 신성한
애절함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슬픔으로가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간다. 높은 의무에 대한 만족스러운 기쁨은 영적
존재들에게 앞서는 감정이다. 신실하게 수행되는 신성한
의무에 대한 의식(意識) 앞에서 슬픔은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의 상승하는 혼이 최극 심판관 앞에 설 때,
영원한 의미에서의 결정은 물질적인 성공 또는 양적인
성취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고등 법원들을 통해
올려 퍼지는 판결은 이렇게 선언한다: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는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에 신실하였다;
너는 우주 실체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될 것이다.”

25:1.7 (274.4) 초우주 봉사에 임할 때 하보나 봉사원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별한 영 특권들에 있어서 그들이 가장 닮은 주(主) 영에 의해 지배되는 그 권역에 항상 배정된다. 그들은 일곱 초우주들의 수도를 돌고 있는 교육적 세계들에서만 봉사하며, 유버사의 최종 보고서는 그것의 490개 위성들에서 거의 1,380억 명의 봉사원들이 사명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오르본톤 초우주의 초월적-대학들을 포함하는 이 교육적 세계들의 활동과 연결되어 있는 끝없이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한다. 이곳에서 그들은 너희의 동행자가 된다; 그들은 너희를 연구하기 위해 그리고 영원의 영역들을 향해 시간의 우주들로부터 너희가 결국 생겨나는 졸업의 실체성과 확실성을 너희에게 고취시키기 위해 너희의 다음 생애로부터 내려왔다. 그리고 이러한 접촉들을 함께 있어서, 그 봉사원들은 졸업생 안내자들의 연관-동료들로서 또는—변형된 봉사원들로서—졸업생 안내자들 자신들로서 하보나 순환회로들 위에서 그들이

그 후에 일할 때 큰 도움을 얻는 시간의 상승하는 창조체들을 사명활동 예비적인 체험을 획득한다.

제 2 장. 우주화해자

25:2.1 (275.1) 창조된 각각의 하보나 봉사원 마다, 각 초우주에서 한 명씩, 일곱 우주화해자가 존재하게 된다. 이 창조적 사건은 파라다이스에서 발생하는 활동행위들에 대해 반영적으로 응답하는 분명한 초우주 기법을 포함한다.

25:2.2 (275.2) 일곱 초우주들의 본부 세계에서는 일곱 주(主) 영들의 일곱 반영들이 기능한다. 이 반영 영들의 본성들을 물질적 마음들에게 묘사하는 일은 어렵다. 그들은 진정한 개인성들이지만; 초우주 집단의 각 성원(要員)은 일곱 주(主) 영들 중 단 하나를 완전하게 반영한다. 그리고 하보나 봉사원의 어떤 집단을 창조하는 목적으로 주(主) 영들이 힘 지도자들과 스스로 연관할 때마다, 그 초우주 집단들 각각에 반영 영들 중 하나에 동시적 초점화구현이 일어나고, 같은 숫자의 우주화해자가 그 초(超)창조들의 본부 세계들 위에 즉시 그리고 성숙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봉사원들의 창조에 있어서 만일 7번 주(主) 영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면, 오직 일곱 번째 계층의 반영 영들만이

화해자들을 품게 될 것이다; 오르본톤을-뺀 1,000명의 봉사원들이 창조됨과 동시에, 1,000명의 일곱 번째 계층 화해자들이 각 초우주 수도에 나타날 것이다. 주(主) 영들의 칠중 본성을 반영하는, 이들 에피소드로부터, 각 초우주에서 봉사하는 창조된 일곱 계층들의 화해자들이 출현한다.

25:2.3 (275.3) 파라다이스-이전(以前) 지위의 화해자들은 초우주들 사이를 오가며 봉사하지는 않는데, 그들이 태어난 창조 지역에 제한된다. 그러므로 창조된 각 계층 중 7분의 1을 포함하여, 각 초우주 무리단은 다른 존재들을 제외할 정도로 주(主) 영들의 영향 아래에서 매우 긴 시간을 보내는데, 왜냐하면 일곱 전체가 초우주 수도들에서 반영되는 반면 오직 하나만이 각 초(超)창조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25:2.4 (275.4) 일곱 초(超)창조들 각각에는 그것의 운명을 주관하는 주(主) 영들 중 하나가 실재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그래서 각 초우주는 감독하는 주(主) 영의 본성과 성격을 반영하는 거대한 거울처럼 되며, 또한 이 모두는 창조 어머니 영들의 현존과 기능에 의해 각 하위(下位)

지역우주 안에서 더욱 계속된다. 진화적 성장에 대한 그러한 환경의 영향이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그들의 초우주-이후 생애에서 화해자들은 49개 체험적 관점들, 공통찰력들을, 각자가 각도를 이루면서—이에 따라서 불완전하게—현시 하는 데, 그러나 모두가 상호 보완적이며 또한 함께 최극위의 순환계를 둘러싸는 경향이 있다.

25:2.5 (275.5) 각 초우주 안에서 우주화해자는 자신들이 기묘하게, 그리고 네 개의 집단, 그들이 계속 봉사하는 관계적-연합들로 태생적으로 갈라져 있음을 발견한다. 각 집단마다, 셋은 영 개인성들이고, 하나는 봉사원들 중 네 번째 창조체와 마찬가지로 반-물질적 존재이다. 이 4인조가 화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25:2.6 (275.6) 1. 심판-중재자. 그 집단의 법적 우두머리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최상으로 분별화되었다고 다른 셋에 의해 만장일치로 지명된 자.

25:2.7 (275.7) 2. 영-대변자. 화해 위원회가 판결하도록 배정된 어떤 문제 안에 포함된 모든 개인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거를 제시하도록 심판-중재자에 의해 지명된 자.

25:2.8 (276.1)

3. 신성한 집행자. 영역들의 물질적 존재들과 접촉을 이룩하기 위해 그리고 그 위원회의 결정들을 실행하기 위해 선천적 본성에 따라 분별화되는 화해자. 네 번째 창조체들—제4 물질적 존재들—인, 신성한 집행자들은 필사자 인종들의 짧은 시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거의 볼 수 있다.

25:2.9 (276.2)

4. 기록자. 위원회의 나머지 성원은 자동적으로 기록자, 법정 서기가 된다. 그는 그 지역우주의 기록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초우주의 문서들을 위하여 모든 자료들이 잘 준비되도록 확인한다. 만일 그 위원회가 진화 세계에서 봉사하고 있다면, 세 번째 보고서가, 집행자의 보조를 받아, 사법권의 체계 정부의 물리적 기록들을 위해 준비된다.

25:2.10 (276.3)

심리 중에 있는 위원회는 3명이 집단을 이루어 기능하는데 이것은 변호사가 재판 중에는 분리되어 있고 청문회의 결론 부분에서만 판결문 작성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위원회들은 3인조 심판관들이라고 불린다.

25:2.11 (276.4) 화해자들은 우주들의 우주가 잘 운행되도록 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한다. 세라핌천사의 3배 속도 비율로 공간을 가로지르면서, 그들은 그 세계들의 이동 법정, 사소한 어려움들을 빨리 판결하도록 헌신된 위원회로서 봉사한다. 기동력이 있고 매우 공정한 이 위원회가 없었다면, 그 구체들의 법정들은 영역들의 사소한 오해들로 뒤덮여서 소망을 잃을 것이다.

25:2.12 (276.5) 이 3인조 심판관들은 영원한 중요성을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는다; 혼, 시간의 창조체의 영원한 가능성은 그들의 활동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는 법이 없다. 화해자들은 시간의 창조체들의 일시적 실존과 조화우주 복지를 넘어서는 문제들은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원회가 문제에 대한 판결을 일단 받아들인 후에는, 그것의 통치가 최종적이고 항상 일치 한다; 심판-중재자의 결정에 대한 이의가 없다.

제 3 장. 화해자의 멀리-미치는 봉사

25:3.1 (276.6) 화해자들은 그들의 초우주의 수도에 집단 본부를 유지하는데, 그곳에 그들의 1차 예비무리단들이 주둔한다. 그들의 2차 예비무리단들은 지역우주들의 수도에

주둔한다.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체험이 적은 위원들은 비교적 낮은 세계들, 유란시아와 같은 세계들에서 그들의 봉사를 시작하며, 그들이 성숙한 체험을 이룬 후에 더 큰 문제들을 판결하도록 파견된다.

25:3.2 (276.7) 화해자들의 계층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어느 하나도 타락한 적이 없다. 지혜와 판결에 오류가 없다 하더라도, 그들은 명백한 의존성을 가지며 충성심에 있어서 틀림이 없다. 그들은 초우주의 본부에서 지원되고 결국에는 그곳으로 돌아가는데, 다음과 같은 우주 봉사 차원들을 통해 진보 한다:

25:3.3 (276.8) 1. 세계에 대한 화해자. 개별 세계들의 감독하는 개인성들이 존재하는 환경 하에서의 적절한 과정과 관련하여 크게 난처하게 되고 실재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영역의 정기적으로 열리는 법정 앞으로 가져갈 만큼 중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각 논쟁 편마다 하나씩, 두 개인성들의 청원을 받아, 화해하는 위원회가 즉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25:3.4 (277.1) 이러한 행정-관리적 그리고 사법적 문제들이 심리와 판결을 위해 그 화해자들에게 부여될 때, 그들은

최극의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증거를 청취하기 전에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증인을 소환하는 그들의 권한에 어떤 제한도 없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반면, 어떤 때에는 문제들이 너무 진전되어서 그 위원회가 주어진 어떤 관점에서 그 기록들을 중단하고, 그 견해들을 결론지으며, 모든 질문들을 영역의 더 높은 법정으로 보낸다.

25:3.5 (277.2) 그 위원들의 결정들은 행성 기록부에 기록되고, 만일 필요하다면 신성한 집행자들에 의해 시행된다. 이 권세는 매우 크고,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서의 그의 활동들의 범위는 매우 넓다. 신성한 집행자들은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그것에 대한 흥미 속에 있는 그것에 대한 능란한 조종자들이다. 그들의 활동은 때로 영역의 명백한 복지를 위해 수행되고, 때로는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의 그들의 행동이 설명되기 어렵다. 자연 법칙이나 영역의 정해진 관습에 어긋나지 않게 법령을 집행하지만, 그들은 흔히 체계 관리-행정 중 비교적 높은 법에 따라 그들의 비범한 일들을 수행하고 화해자들의 명령을 집행한다.

25:3.6 (277.3)

2. 체계 본부에 대한 화해자. 진화 세계들에서의 봉사로부터, 이 4인 위원회는 체계 본부에서의 임무로 향상된다. 여기에서 그들이 할 일이 많으며, 그들은 사람들과 천사들 그리고 다른 영 존재들의 납득하는 친구가 되는 것을 입증한다. 3인조 심판관들은 개인적 차이들보다는 집단 주장에 그리고 서로 다른 창조체계층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오해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다; 체계 본부에서는 영적인 존재들과 물질적인 존재들뿐만 아니라 물질아들들과 같은 병합된 유형들도 살고 있다.

25:3.7 (277.4)

창조자들이 진화하는 개별존재들로 하여금 선택의 힘을 가지고 실존하게 만드는 순간, 그 순간 신성한 완전의 순조로운 작업으로부터의 이탈이 만들어진다; 오해들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관점에서의 이들 정직한 차이에 대한 공정한 조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모든-지혜와 모든-힘을 지니고 있는 창조자들이 지역우주를 하보나와 똑같이 완전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모두 기억해야만 한다. 중앙우주에서는 그 어떤 화해하는 위원회의 기능도 필요치 않다. 그러나 창조자들은 자신들의 모든-지혜 안에서 이렇게 하기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은 차이가 넘치고 그리고

어려움이 가득한 우주들을 산출해 온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이 모든 차이들을 수습하고 이 모든 나타나 보이고 있는 혼란을 조화시키기 위한 기능구조와 수단들을 마련하였다.

25:3.8 (277.5) 3. 별자리 화해자. 화해자들은 체계들 안에서의 봉사로부터 별자리의 문제들을 판결하는 일로 승진되어,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로 이루어진 100개 체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을 맡는다. 별자리 본부에서 발전되는 문제들에서 그들의 관할권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많지 않지만, 그들은 증거를 수집하고 그리고 예비적인 진술문들을 준비하느라고 체계에서 체계로 계속 바쁘게 움직인다. 만일 주장이 정직하다면, 어려움이 진정한 의견 차이와 정직한 관점의 다양성으로부터 일어난다면, 아무리 소수의 개인들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 오해가 아무리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 논쟁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화해 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25:3.9 (277.6) 4. 지역우주에 대한 화해자. 우주의 비교적 큰 이 일에서 위원들은 멜기세덱들과 치안법관 아들들에게,

그리고 100개 별자리들에 대한 조화-협동과 관리-행정에 관여하는 별자리 통치자들 그리고 개인성들의 무리들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 지역우주의 본부 구체에 속한 다른 세라핌천사 계층들 그리고 다른 거주민들 역시 3인조 심판관들의 도움과 결정에 참여한다.

25:3.10 (278.1) 체계, 별자리, 또는 우주의 자세한 관련사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차이들의 본성을 설명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어려움들이 조성되지만, 그것들은 진화 세계들에서 사는 것과 같은 물질적 실존의 하찮은 시련들 그리고 진통들과는 매우 다르다.

25:3.11 (278.2) 5. 초우주 소구역에 대한 화해자. 지역우주들의 문제들로부터, 취역자들은 그들의 초우주의 소구역들에서 발생하는 의문점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나아간다. 그들이 개별 행성들로부터 안쪽을 향하여 멀리 상승하면 할수록, 신성한 집행자의 물질적 의무들은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며; 그는 점차적으로 자비-공의 통역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는데, 동시에—제4의 물질적—그 조사의 물질적 측면과의 동정심 어린 접촉에 있어서 전체로서 위원회를 유지한다.

25:3.12 (278.3)

6. 초우주 대구역에 대한 화해자. 위원장들의 활동의 성격은 그들이 진보함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 판단해야 할 오해는 점점 줄어들고, 설명하고 해석해야 할 신비한 현상들은 점점 더 늘어난다. 이 단계에서 저 단계로, 그들은 아이들의 중재자들로부터 신비 해석가들—해석하는 선생들로 진화하는 심판관들—로 진화한다. 그들은 한때, 무지로 인하여 어려움들과 오해들이 발생되게 하는 그들의 중재자였지만, 그들은 이제 마음의 충돌과 견해의 투쟁을 피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지능적이고 인내심이 있는 자들의 강사들이 되고 있다. 창조체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는 다른 창조체들의 지식과 체험과 견해들을 더욱 존중한다.

25:3.13 (278.4)

7. 초우주에 대한 화해자. 여기에서 화해자들은 조화-협동하는—4명의 상호 납득하고 완전하게 기능하는, 중재자-교사들이 된다. 신성한 집행자는 되갚는 능력을 제거 당하고 삼인조 영의 물리적 음성이 된다. 이때가 되면 이 조언자들과 선생들은 초우주 관련사들을 수행하면서 만나는 실재적 문제들과 어려움들 중 대부분에 노련하게 숙달된다. 그래서 그들은 초우주들의 본부 세계들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 구체들의 거주지에 있는 상승하는

순례자들에 대한 훌륭한 충고자들 그리고 현명한 선생들이 된다.

25:3.14 (278.5) 모든 화해자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전반적 감독 아래에서 그리고 영상 도움자들의 직접적 지도 아래에서 그들이 파라다이스로 진보할 그러한 때까지 봉사한다. 파라다이스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그들이 기원된 그 초우주를 관장하는 주(主) 영에게 보고한다.

25:3.15 (278.6) 초우주 기록부는 그들의 관할권 밖에 벗어나 있었던 그 화해자들을 계수(計數)하지 않으며, 그러한 위원회들은 대우주 전반에 널리 흩어져 있다. 유버사에서의 최종 등록 보고서는 오르본톤 안에서 활동하는 그 숫자가 거의 18조(兆)개의 위원회—70조(兆)명 이상의 개별존재들—에 이르는 것으로 말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오직 오르본톤 안에서 창조되어 온 화해자들 군중의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그 숫자는 훨씬 더 크고, 졸업생 안내자들로 변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하보나 봉사원의 전체 숫자와 동등하다.

25:3.16 (278.7) 때때로, 초우주 화해자들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은 파라다이스에서 완전의 협의회로

전환되는데, 그것으로부터 우주들의 우주를 위해 무한한 영에 의해 진화된 조화-협동하는 무리단으로서 그들이 뒤이어서 창발하며, 그들은 숫자와 효율성이 계속 증가하는 훌륭한 존재들의 집단이다. 그들은 체험적 상승과 파라다이스 훈련에 의해 최극존재의 창발 하는 실체에 대한 독특한 이해를 획득해 왔으며, 그들은 특별한 임무를 띠고 우주들의 우주를 돌아다닌다.

25:3.17 (279.1) 화해하는 위원회의 성원들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4개의 집단이, 그들이 기원적으로 연관되었던 것과 똑같이, 함께 언제까지나 봉사한다. 심지어는 그들의 영화롭게 된 봉사에 있어서도, 그들은 축적된 조화우주 체험과 완전해진 체험적 지혜의 4인조로서 계속 기능한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최극 공의(公義)의 체현으로서 영원히 연관되어 있다.

제 4 장. 기술 충고자

25:4.1 (279.2) 영 세계의 이 법적 그리고 기술적 마음들은 그렇게 창조되었던 것은 아니다. 초기의 초(超)천사들 그리고 전(全)천사들로부터, 가장 계층적인 마음들 중 백만 명이 무한한 영에 의해 이 광대하고 다양한 집단의 핵으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그 먼 시간 이래로, 진화적 창조의 계획에 대한 완전의 법칙들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실재적 체험이 기술충고자들이 되기로 열망하는 모두에게 요구되어 왔다.

25:4.2 (279.3) 기술충고자들은 다음과 같은 개인성 계층의 계층들로부터 모집된다:

25:4.3 (279.4) 1. 초(超)천사.

25:4.4 (279.5) 2. 2품천사.

25:4.5 (279.6) 3. 3품천사.

25:4.6 (279.7) 4. 전(全)천사.

25:4.7 (279.8) 5. 세라핌천사.

25:4.8 (279.9) 6. 상승하는 필사자의 특정 유형.

25:4.9 (279.10) 7. 상승하는 중도자의 특정 유형.

25:4.10 (279.11) 현재, 모두가 과도기적으로 배정되어 있는 필사자들과 중도자들을 제외하고, 유버사에 등록되어

있고 오르본톤 안에서 활동하는 기술충고자들의 숫자는 61조(兆) 명을 조금 넘는다.

25:4.11 (279.12) 기술충고자들은 종종 개별존재들로서 기능하기도 하지만 봉사를 위해 조직되어 있고 일곱을 집단으로 배정된 그 구체들 위에 공동 본부를 유지한다. 각 집단 안에서 적어도 다섯 명은 영원한 지위를 가져야만 되는 반면 두 명은 일시적 관계적-연합에 소속될 수 있다. 상승하는 필사자들과 상승하는 중도 창조체들은 파라다이스 상승을 추구하면서 이 자문 위원회들에서 봉사하지만, 그들은 기술충고자들을 위한 정규 훈련 과정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계층의 영원한 일원(一員)이 결코 되지 않는다.

25:4.12 (279.13) 충고자들과 함께 과도기적으로 봉사하는 필사자들 그리고 중도자들이 그러한 일에 선택된 것은 우주적 법칙과 최극 공의의 개념에 있어서 그들의 전문성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의 파라다이스 목표를 향해 여행하면서 추가된 지식과 증진된 기술을 계속 취득하게 될 때, 너희는 너희가 이미 축적해 온 지혜와 체험을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받게 된다; 하보나에

이르는 동안 내내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는 학생-선생의 역할을 한다. 너희는 너희의 전진하는 생애에 대한 새로-발견된 지식을 너희들 바로 밑에 있는 그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이 광대한 체험적 대학의 상승하는 차원들을 통해 애써서 너희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우주 체제 안에서 너희는 이 지식과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기꺼이 나누어주고자 하는 너희 기꺼운 마음과 능력을 실증하기 전까지는 지식과 진리를 너희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5:4.13 (280.1) 긴 훈련과 실재적 체험을 가진 후에는, 케루빔의 지위 상위에 있는 사명활동 영들 중 누구든지 기술충고자들로서 영원히 임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허용된다. 모든 후보자들이 이 봉사 계층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지만; 그러한 의무들을 일단 시작한 후에는, 그들은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다. 오직 옛적으로 늘 계신만이 이 충고자들을 다른 활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25:4.14 (280.2) 지역우주들의 멜기세덱 대학들에서 시작된 기술충고자들에 대한 훈련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이 초우주 훈련으로부터,

그들은 하보나 순환회로들의 선도(先導) 세계들에 위치한 “일곱 순환계들의 학교”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선도(先導) 세계들로부터, 그들은 “최극위의 기법과 법 윤리대학”, 기술충고자들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파라다이스 훈련 학교에 받아들여진다.

25:4.15 (280.3) 이 충고자들은 법률 숙련자 이상이다; 그들은 적용되는 법, 멀리-퍼지는 창조의 광대한 권역들 안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의 삶과 운명에 적용되는 우주의 법칙들의 학생들인 동시에 선생님들이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살아있는 법 도서관이 되는데, 영원의 통치자들에게 가장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과정의 형태들 그리고 형식들과 관계되는 시간의 개인성들을 가르침으로써 끝없는 재난과 쓸모없는 지연을 방지한다. 그들은 그들로 하여금 파라다이스의 요구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공간의 일꾼들에게 그렇게 조언할 수 있다; 그들은 창조자들의 기법과 관계하는 모든 창조체들의 선생님들이다.

25:4.16 (280.4) 적용된 법의 그러한 살아있는 도서관은 창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존재들은 실재적 체험에 의해

진화되어야만 한다. 무한한 신(神)들은 실존적이고, 따라서 체험 부족을 보정한다; 그들은 모든 것을 체험하기 전일지라도 모든 것을 알지만, 그들은 이러한 비(非)체험적인 지식을 그들의 종속 창조체들에게 나누어주지 않는다.

25:4.17 (280.5) 기술충고자들은 지연을 막고 진보를 촉진시키고 성취를 조언하는 일에 전념되어 있다. 일들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올바른 길이 항상 존재한다; 완전의 기법, 신성한 방법이 항상 존재하고, 이 충고자들은 더 나은 이 길을 찾는데 있어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안다.

25:4.18 (280.6) 엄청나게 현명하고 실천적인 이 존재들은 우주 검열자들의 봉사 그리고 활동과 항상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멜기세덱들에게는 유능한 무리단이 제공되어 있다. 체계들과 별자리들과 우주들 그리고 초우주 구역들의 통치자들 모두에게는 영적 세계의 이들 기술적 또는 법적 참조가 되는 마음들이 풍부하게 공급되어 있다. 특별한 집단이 생명운반자들에게 법 조언자들로 활동하는데, 생명 번식에 대한 확립된 계층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범위에 관하여 충고하고 아니면 기능에 대한 그들의 특권과 범위에 관하여 그들을 가르친다. 그들은 모든 영-세계 활동행위들의 적당한 활용과 기법들에 관여하는 모든 등급의 존재들에 대한 충고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영역들의 물질적 창조체들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하지는 않는다.

25:4.19 (280.7) 법적 활용에 관한 조언 이외에도, 기술충고자들은 창조체 존재들—물질적, 마음적, 그리고 영적—에 관한 모든 법들을 효과적으로 해석하는 일에도 동일하게 헌신되어 있다. 그들은 우주화해자에게 그리고 법의 진리를 알기를 갈망하는 모든 다른 자들에게 유용하게 가능하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확립된 물질적, 마음적, 그리고 영적 계층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주어진 상황 안에서 반응하는 것에 신(神)의 최극위가 어떻게 의존될 수도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모든 다른 자들에게 유용하다. 그들은 심지어 궁극자의 기법까지 명료하게 하려고 시도한다.

25:4.20 (281.1) 기술충고자들은 선택되고 시험된 존재들이다; 내가 아는 한 그들 중 어느 하나도 타락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토록 효과적으로 해석하고 그토록 웅변적으로 설명하는 그 신성한 법들을 경멸하였다고 그들이 판결을 받았다는 기록을 우리는 유버사에서 결코 발견하지 못한다. 그들의 봉사 권역에는 알려진 제한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보에 방해하는 어떤 것도 없다. 그들은 심지어 파라다이스의 문지방에 이르기까지 충고자의 역할을 계속한다; 법과 체험의 전체 우주가 그들에게 열려 있다.

제 5 장. 파라다이스에 있는 기록보호관리자

25:5.1 (281.2) 하보나에 있는 3차 초(超)천사들 가운데로부터, 일정한 선배 기록자 우두머리들이 기록보호관리자로서, 빛의 섬의 공식 글들의 보관자로서 선택되는데, 그 문서들은 때때로 “파라다이스의 살아있는 도서관”이라고 명명되는 지식 보호관리자들의 마음 안에 등록된 살아있는 기록들과 대조를 이룬다.

25:5.2 (281.3) 거주되는 행성들의 기록하는 천사들이 모든 개별적 기록들의 근원이다. 우주들에 두루 다른 기록자들이 공식 기록들 그리고 살아있는 기록들 둘 모두에 관하여 기능한다. 유란시아로부터 파라다이스로, 두 기록들을 모두 만나는데: 지역우주 안에서는, 더 많은

쓰인 기록들과 더 적은 살아있는 기록들이 가능하고; 파라다이스에서는, 더 많은 살아있는 기록과 더 적은 공식 기록이 가능하고; 유버사에서는 둘 모두 동일하게 가능하다.

25:5.3 (281.4) 조직되고 거주민이 사는 창조 안에서 의의(意義)를 지닌 모든 발생사건이 기록의 대상이다. 지역적 중요성에 불과한 사건들은 오직 지역적 기록에서만 발견되는 반면, 비교적 넓은 의의(意義)를 갖는 것들은 거기에 따라서 취급된다. 네바돈의 행성들과 체계들과 별자리들로부터, 우주 중요성을 갖는 모든 것이 구원자별에서 공표 된다; 그 구역과 초(超)정부들의 관련사들에 속하는 비교적 높은 기록부에게로 그러한 우주 수도들로부터 그 에피소드들이 올라간다. 파라다이스 역시 초우주 그리고 하보나 자료의 관련 요약을 소유 한다; 우주들의 우주의 이 역사적 그리고 누적 진술은 고양된 이 3차 초(超)천사가 보관한다.

25:5.4 (281.5) 이 존재들 중 특정인들이 천상의 기록자들의 활동들을 지도하는 기록 우두머리들로서 봉사하도록 초우주들에게 보냄을 받는 반면, 어느 하나도 그들의 계층의 영원한 출석 점호로부터 이전(移轉)되지 않았다.

제 6 장. 천상의 기록자

25:6.1 (281.6) 이들은 모든 기록들을 복사하는 기록자들인데, 원본 영 기록과 반(半)물질적 사본—복사본이라고 불릴 수 있는—을 만든다.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적 그리고 물질적 에너지 둘 모두를 동시에 조종할 수 있는 그들의 특별한 능력 때문이다. 천상의 기록자들은 그렇게 창조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역우주들로부터의 상승하는 세라핌천사들이다. 그들은 일곱 초우주들의 본부들에 있는 기록 우두머리들의 협의회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분류되고 그들의 작업 구체에 배정된다. 거기에는 훈련하는 천상의 기록자들을 위한 학교도 위치하고 있다. 유버사에 있는 학교는 지혜의 완전자들과 신성한 조연자들에 의해 수행된다.

25:6.2 (281.7) 기록자들이 우주 봉사에 있어서 진보를 이룩할 때, 그들은 2중으로 기록하는 그들의 체계를 계속 유지하며, 그리하여 그들의 기록들이 물질적 계층으로부터 높은 빛의 영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등급의 존재들에게 항상 가능하게 만든다. 너희의 변환 체험에 있어서, 이 물질적 세계로부터 너희가 상승할 때, 너희는 너희가 속한 구체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기록들을 항상 참고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그것에 정통할 수 있다.

25:6.3 (282.1) 기록자들은 시험을 받고 단련된 무리단이다. 천상의 기록자들이 변절하였다는 말을 나는 결코 들은 적이 없으며, 그들의 기록에 오류가 발견된 적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2중의 검열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들의 기록들은 유버사로부터 고양된 그들의 동료들에 의해 그리고 원본 영 기록들의 준-물질적 사본들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막강한 메신저들에 의해 세밀히 검사된다.

25:6.4 (282.2) 오르본톤 안에 있는 하위 기록 구체들 위에 주둔하는 승진하는 기록자들의 숫자가 수 조(兆)에 이르지만, 유버사에서 지위를 획득한 자들의 숫자는 8백만 명이 되지 않는다. 이 선배 또는 졸업생 기록자들은 초우주 보호관리자들이며 시간과 공간의 보증된 기록들의 전달자들이다. 그들의 영원한 본부는 유버사에 있는 기록 장소 주변에 있는 원형 거주지들 안에 있다. 그들은 다른 것들을 위해 이 기록들을 보호하는 일을 떠난 적이 없으며; 그들이 개별존재로서 떠날 수는 있지만 많은 숫자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25:6.5

(282.3)

기록보호관리자들이 되어 온 그 초(超)천사들처럼, 천상의 기록자 무리단은 영원한 임무에 속한다. 세라핌천사들과 초(超)천사들이 일단 이 봉사에 소집되면, 그들은 최극자 하느님의 충만한 개인성구현에 대한 새롭고도 변형된 관리-행정의 그 날까지 기록보호관리자들 그리고 천상의 기록자들로써 각각 남아 있을 것이다.

25:6.6 (282.4)

유버사에서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도착한 아득히 먼 시절 이후에 오르본톤 전체에서 아주 중요성을 가진 모든 것의 기록을 이 선배 천상의 기록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반면, 영원한 섬에서는 무한한 영이 개인화구현된 시절 이후에 파라다이스의 활동행위들을 증거 하는, 영역의 기록 보관소를 기록보호관리자들이 지킨다.

제 7 장. 모론시아 동행자

25:7.1 (282.5)

지역우주 어머니 영들의 이 자녀들은 상승하는 모론시아 삶을 사는 전체의 친구들 그리고 연관-동료들이다. 그들은 창조체 진보에 해당하는 상승자의 실제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그들은 파라다이스 여행에서 그들의 필사자 연관-

동료들과 종종 대동하는 세라핌천사 수호자들의 활동을 어떤 면에서도 대신하지 않는다. 모론시아 동행자들은 안쪽을 향한 긴 상승을 막 시작하는 그들에게 단순히 상냥한 집주인에 불과하다. 또한 그들은 유능한 놀이 후원자들이고 복귀 지도자들이 이 일을 훌륭하게 돕는다.

25:7.2 (282.6) 너희가 네바돈의 모론시아 훈련세계들에서 수행하기에 중대하고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임무들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너희에게는 휴식과 전환의 정규기간들이 항상 제공될 것이다. 파라다이스에 이르는 여행에 두루 휴식과 영 놀이를 위한 시간이 항상 있게 될 것이다; 빛과 생명의 생애에 있어서는 경배와 새로운 성취를 위한 시간이 항상 있을 것이다.

25:7.3 (282.7) 이들 모론시아 동행자들은, 너희가 모론시아 체험의 마지막 위상을 최종적으로 떠날 때, 너희가 초우주 영 모험여행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면서, 이들 동행할 창조체들이 너희를 따라올 수 없음을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게 되는 그러한 친근한 연관-동료들이지만, 그들은 오직 지역우주들 안에서만 봉사한다. 상승하는 생애의 각 단계마다 접촉 가능한 모든 개인성들이 친근하고 사귄 만

하게 되겠지만, 너희가 파라다이스 동행자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토록 친구신분과 동행자신분에 헌신된 다른 집단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25:7.4 (283.1) 모론시아 동행자들의 활동은 너희 지역우주의 관련사들과 관계되는 그 이야기들 속에 더 충분히 묘사되어 있다.

제 8 장. 파라다이스 동행자

25:8.1 (283.2) 파라다이스 동행자들은 세라핌천사들과 2품천사들과 초(超)천사들 그리고 전(全)천사들의 계급들로부터 모집된 혼합적 또는 결집된 집단이다. 너희가 특별한 기간의 시간으로 간주하게 될 동안 봉사하더라도, 그들은 영원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 이 사명활동이 완료되면, 일반적으로(그러나 일정한 것은 아니고) 그들은 그들이 파라다이스 봉사에 소환될 때 수행하였던 그 임무들에게로 돌아간다.

25:8.2 (283.3) 천사(天使) 무리의 성원들은 지역우주 어머니 영들에 의해, 초우주 반영 영들에 의해, 그리고 파라다이스 장엄자에 의해 이 봉사에 지명된다. 그들은 중앙 섬으로 소환되고 일곱 주(主) 영들 중 하나에 의해 파라다이스

동행자들로써 임명된다. 파라다이스에서의 영원한 지위는 제외하고, 파라다이스 동행자신분의 이 일시적 봉사는 사명활동 영들에게 영원히 부여되는 가장 고귀한 명예이다.

25:8.3 (283.4) 선택된 이 천사들은 동행자신분의 봉사에 전념하고, 홀로 파라다이스에 있을 기회가 있는 모든 등급의 존재들에게, 주로 상승하는 필사자들에게, 또한 중앙 섬에 홀로 있는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 동료들로서 배정된다. 파라다이스 동행자들은 그들이 형제우애관계를 가지는 그들을 위하여 특별히 성취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단지 동행자일 뿐이다. 너희 필사자들이 파라다이스에 머무는 동안 만나게 될 거의 모든 다른 존재는—너희 동료 순례자들은 제외하고—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할 분명한 어떤 일을 갖고 있지만; 이 동행자들은 오직 너희와 함께 있도록 그리고 개인성 동료들로서 너희와 교제하도록 배정된다. 상냥하고 총명한 파라다이스 시민들이 그들의 사명활동을 종종 돕는다.

25:8.4 (283.5)

필사자들은 매우 사회적인 인종들로부터 온다. 창조자들은 “홀로 있는 것이 사람에게 좋지 않음”을 잘 알며, 심지어 파라다이스에서도 동행자신분에 대한 배려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다.

25:8.5 (283.6)

만일 너희가, 상승하는 필사자로서, 이 세상 생애에서의 너희의 동행자나 가까운 연관-동료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도착하게 된다면, 또는 만일 너희 운명수호 세라핌천사가 어쩌다가 너희와 함께 도착하거나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떤 영구적인 동행자도 너희에게 배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홀로 도착한다면, 빛의 섬 위에서 시간에서의 끝을 맺는 잠으로부터 너희가 깨어날 때 한 동행자가 분명히 너희를 환영할 것이다. 상승하는 어떤 동료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 알려진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동행자들이 너희를 영원한 나라로 환영하도록 그리고 너희와 너희 동료들을 접대하기 위하여 준비된 예약 석으로 너희를 안내하도록 지명되어 있을 것이다. 너희는 파라다이스의 영속하는 해안에서 영원 안으로 부활하는 체험을 할 때 따뜻하게 환영받을 것임을 굳게 믿어도 좋다.

25:8.6 (283.7) 하보나의 마지막 순환회로에 그 상승자들이 머무는 마지막 날들 동안 접대하는 동행자들이 배정되고, 그들은 공간의 세계들과 하보나의 순환계들을 통한 다사다난했던 상승과 필사자 기원에 관한 기록들을 조심스럽게 검토한다. 그들이 시간의 필사자들을 환영할 때, 그들은 도착하는 이 순례자들의 생애에 이미 잘 통달해 있으며 동정심 많고 호기심 많은 동행자들이 됨을 즉각적으로 증명한다.

25:8.7 (283.8) 너희가 파라다이스에서 최종자-이전(以前) 상태로 머무는 동안, 어떤 이유로 상승하는 생애의 너희 연관-동료—필사자 또는 세라핌천사—로부터 너희가 일시적으로 분리된다면 파라다이스 동행자가 조언과 동행자신분을 이루기 위해 즉시 배정될 것이다. 파라다이스에 홀로 거주하는 상승하는 필사자에게 일단 배정되고 나면, 그 동행자는 그가 그의 상승하는 동료들과 재결합하든지 아니면 최종의 무리단에 정식으로 소집된 때까지 이 개인과 함께 남아 있다.

25:8.8 (284.1) 파라다이스 동행자들은 상승자가 그 본성이 그의 초우주 유형과는 다른 동행자에게 맡겨지는 일이 결코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다리는 순서대로 배치된다. 만일 유란시아 필사자가 오늘 파라다이스에 도착하였다면, 오르본톤에서 기원되었거나 아니면 일곱 번째 주(主) 영의 본성을 가진 기다리는 첫 번째 동료는 거기에서 그에게 배정될 것이다. 따라서 전(全)천사들은 일곱 초우주들로부터 상승하는 창조체들과 함께 봉사하지 않는다.

25:8.9 (284.2) 추가적인 여러 봉사들이 파라다이스 동행자들에 의해 수행 된다: 만일 상승하는 필사자가 홀로 중앙우주에 도착하였다면, 그리고 하보나를 지나가는 동안 신(神) 모험여행의 어느 위상에서 실패하였다면, 적당한 시기에 그가 시간의 우주들에게로 귀환되고, 즉시 파라다이스 동행자들의 예비자들에 소집될 것이다. 실패한 순례자가 파라다이스를 향하여 다시 상승을 시작하기 위하여 중앙우주로 돌아올 때까지, 이 계층 중 하나가 그를 따르고 그와 함께 있고 그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며 그와 함께 남아 있도록 배치될 것이다.

25:8.10 (284.3) 만일 상승하는 순례자가 상승하는 세라핌천사, 필사자 생애의 수호천사와 대동하여 하보나를 지나가는

동안 신(神) 모험여행에서 패배를 맛보게 되었다면, 그녀는 그녀의 필사자 연관-동료를 따라가기로 선택할 것이다. 이 세라핌천사는 항상 자원하며, 시간과 공간의 봉사로 돌아가는 그들의 긴 기간 동안의 필사자 동료들을 따라가도록 허용된다.

25:8.11 (284.4) 그러나 긴밀하게 연관된 필사자 상승자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만일 한 편이 하느님을 달성하는 반면 다른 편이 일시적으로 실패하면, 성공한 개별존재는 실망한 그 개인성과 함께 진화적 창조계로 돌아가기로 늘 선택하지만,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파라다이스 동행자들 예비자들을 호출하게 되고, 자원자들 중 한 명이 실망한 그 순례자와 동행하도록 선택된다. 그 때 한 명의 자원하는 파라다이스 시민이 성공한 필사자와 연관하게 되며, 성공한 자는 실패한 동료가 하보나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중앙 섬에 머물고, 그 동안 그는 일정한 파라다이스 학교들에서 가르치는데 진화적 상승에 대한 모험적인 이야기를 제시한다.

25:8.12 (284.5) [유버사로부터 온 높은 권한자의 후원을 받았음]

제 26 편 중앙우주의 사명활동 영

26:0.1

(285.1)

초(超)천사들은 파라다이스와 중앙우주의 사명활동 영들이다; 그들은 무한한 영의 자녀들 중 가장 낮은 집단—천사 무리—중에서 가장 높은 계층이다. 그러한 사명활동 영들은 파라다이스 섬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만나게 된다. 조직되고 거주민이 사는 창조 중 어느 주요 부분도 그들이 봉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제 1 장. 사명활동 영

26:1.1 (285.2)

천사들은 모든 공간의 진화적이고 상승하는 의지적 창조체들의 사명활동-영 동료들이다; 또한 그들은 그 구체들의 신성한 개인성들 중 비교적 높은 무리에 해당하는 동료들인 동시에 활동하는 동반자들이다. 모든 계층의 천사들은 분명한 개인성들이고 높이 개별존재화 되어 있다. 그들은 모두 복귀 지도자들의 사명활동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큰 수용력을 소유한다. 공간의 메신저 무리와 함께, 사명활동 영들은 휴식하고 변화되는 기간을 가지며; 그들은 매우 사교적인 본성을 소유하고 인간 존재들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연관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26:1.2 (285.3) 대우주의 사명활동 영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26:1.3 (285.4) 1. 초(超)천사.

26:1.4 (285.5) 2. 2품천사.

26:1.5 (285.6) 3. 3품천사.

26:1.6 (285.7) 4. 전(全)천사.

26:1.7 (285.8) 5. 세라핌천사.

26:1.8 (285.9) 6. 케루빔과 사노빔.

26:1.9 (285.10) 7. 중도(中途) 창조체.

26:1.10 (285.11) 천사 계층의 개별 성원들은 우주 안에서 개인적 지위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함께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계층의 천사들은 일정기간 동안 파라다이스 동행자들이 될 수 있다; 일부는 천상의 기록자들이 된다; 또 다른 이들은 기술 충고자들의 계급으로 승진한다. 일정한 케루빔들은 세라핌천사 지위 그리고 운명으로 올라가기도 하는 반면, 진화 세라핌천사들은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들의 영적 차원들을 성취할 수 있다.

26:1.11 (285.12) 사명활동 영들의 일곱 계층들은, 계시되는 바와 같이, 발표하는 것을 위하여 상승하는 창조체들에 대해 가장 엄청난 중요성을 지닌 그들의 기능에 따라서 집단으로 묶여 분류된다:

26:1.12 (285.13) 1. 중앙우주의 사명활동 영. 초(超)천사의 세 계층들은 파라다이스-하보나 체계에서 봉사한다. 1차 또는 파라다이스 초(超)천사들은 무한한 영에 의해 창조된다. 하보나에서 봉사하는 2차 그리고 3차 계층들은, 각각 주(主) 영들의 그리고 순환회로들의 영들의 자손이다.

26:1.13 (286.1) 2. 초우주의 사명활동 영.—2품천사 3품천사, 그리고 전(全)천사. 반영 영들의 자녀인 2품천사는 일곱 초우주들 안에서 다양하게 봉사한다. 무한한 영 안에서 기원된 3품천사는 결국에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 창조자 아들들의 연락 봉사에 전념한다. 전(全)천사들은 무한한 영과 일곱 최극집행자들에 의해 협동으로 창조되고, 그들은 후자의 독점적 하인들이다. 이 세 계층들에 대한 논의는 이 글들 안에서 계속되는 주제를 형성한다.

26:1.14 (286.2) 3. 지역우주의 사명활동 영은 세라핌천사들과 그들의 보좌관들, 케루빔을 포용한다. 필사자 상승자들은

우주 어머니 영의 이 자손들과 최초의 접촉을 갖는다.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 탄생되는 중도 창조체들은, 실제로 고유한 천사 계층에 속하지 않지만, 종종 사명활동 영들과 함께 기능적으로 집단을 짓는다. 세라핌천사들 그리고 케루빔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는 너희 지역우주의 관련사들을 다루는 글들에서 제시되어 있다.

26:1.15 (286.3) 천사 무리의 모든 계층들은 다양한 우주 봉사들에게 헌신되어 있고, 그들은 이런 저런 방법으로 천상의 존재들 중 비교적 높은 계층들을 돌보지만, 시간의 자녀들을 위한 진보적 완전이라는 상승하는 기획의 촉진에 많은 숫자가 채택되는 것은 초(超)천사들과 2품천사들 그리고 세라핌천사들이다. 중앙우주, 초우주. 그리고 지역우주에서 활동할 때, 그들은 영원한 아들을 통하여 우주 아버지를 달성하고자 추구하는 모든 존재에게 도움을 주고 안내하기 위하여 무한한 영에 의해 제공되어 온 영 사명활동자들의 온전한 고리를 형성한다.

26:1.16 (286.4) 초(超)천사들은 오직 하나의 활동 위상, 우주 아버지와 가지는 활동 위상에서 “영 극성(極性)” 안에서

제한을 받는다. 아버지의 독점적 순환회로들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단독으로 일할 수 있다. 아버지의 직접 사명활동에서 힘을 공급받고 있을 때, 초(超)천사들이 기능할 수 있으려면 쌍으로 자발적인 연관을 이루어야만 한다. 2품천사들도 마찬가지로 제한되어 있고 그 외에도 영원한 아들의 순환회로들에게 동조하기 위하여 쌍으로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라핌천사들은 분리되고 집중된 개인성들로서 홀로 활동할 수 있지만, 그들은 연락 쌍으로 극성(極性)을 갖게 되었을 때에만 순환회로화 될 수 있다. 그러한 영 존재들이 쌍으로 연관될 때, 한 쪽은 다른 쪽에게 보완적이라고 말하게 된다. 보완적 관계들은 과도기적일 수 있다; 그들의 영원한 본성일 필요는 없다.

26:1.17 (286.5) 이들 빛나는 빛의 창조체들은 우주의 1차 순환회로들의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직접적으로 유지된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은 식물의 작용을 통하여 빛-에너지를 흡수해야 하지만, 천사 무리는 순환회로에 휩싸여 있다; 그들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갖고 있다” 또한 그들은 기묘한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의 순회하는 가르침에 참여 한다; 그들은 생명 에너지들을

동화시키는 그들의 기법과 매우 흡사하게 지식을 받고 지혜를 흡수한다.

제 2 장. 막강한 초(超)천사

26:2.1 (286.6) 초(超)천사들은 파라다이스와 중앙우주에 머무는 모든 유형의 존재들에게 노련한 사명활동자들이다. 이 높은 천사들은 세 개의 주요 계층; 1차, 2차, 그리고 3차적으로 창조 된다.

26:2.2 (287.1) 1차 초(超)천사들은 공동 창조자의 독점적 자손이다. 그들은 파라다이스 시민들로 구성된 일정한 집단들과 계속-증가하는 상승하는 순례자 무리단에게 동등하게 사명활동한다. 영원 섬의 이 천사들은 파라다이스 거주자들로 구성된 두 집단들에 대한 기본 훈련을 더욱 진행시킴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 그들은 독특한 두 계층의 우주 창조체들—하나는 신성하고 완전한 의지적 창조체 중 가장 높은 유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주들의 우주 전체에서 의지적 창조체 중 가장 낮은 유형의 완전한 진화—에 대한 상호적 납득에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을 제공한다.

26:2.3 (287.2) 1차 초(超)천사들의 업무는 너무나도 독특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에서 별도로 고려될 것이다.

26:2.4 (287.3) 2차 초(超)천사들은 하보나의 일곱 순환회로들에 있는 상승하는 존재들의 관련사들에 대한 지도자들이다. 그들은 중앙 창조의 세계 순환회로들에서 긴 기간 동안 머무는 파라다이스 시민들의 수많은 계층들에 대한 교육적 훈련에 똑같이 관여하여 사명활동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봉사의 이 위상은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26:2.5 (287.4) 이 높은 천사들에는 일곱 유형들이 있는데, 각각은 일곱 주(主) 영들 중 하나에서 기원되고 본질적으로 거기에 따른다. 집단적으로 볼 때, 일곱 주(主) 영들이 독특한 존재들 그리고 실존개체들의 많은 다른 집단들을 창조하고, 각 계층의 개별 성원들은 본성적으로 비교적 균일하다. 그러나 동일한 이 일곱 영들이 개별적으로 창조할 때, 그 결과로 나오는 계층들은 항상 본성적으로 칠중이다; 각 주(主) 영의 자녀들은 그들의 창조자의 본성을 띠고 거기에 따라 다른 존재들과 다르다. 그러한 것이 2차 초(超)천사의 기원이고, 창조된 일곱 유형들 전체의 천사들은 그들 전체 계층에게 열린 모든 기능

통로들 속에서 활약하는데, 주로 중앙 그리고 신성한 우주의 일곱 순환회로들 위에서도이다.

26:2.6 (287.5) 하보나의 일곱 행성 순환회로들 각각은 그 일곱 순환회로 영 중 하나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에 있는데, 그들 자신은 일곱 주(主) 영의 집단적—따라서 균일한—창조이다.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하보나의 이 일곱 보완 영들은 기원적인 원형틀 우주의 일부분은 아니었다. 그들은 기원적(영원한) 창조가 있는 뒤에 그러나 그랜환다의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기능하고 있었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최극존재의 창발 하는 목적에 대해 주(主) 영들의 창조적 응답으로서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대우주의 조직화 이후에 기능적으로 발견되었다. 무한한 영과 그의 모든 창조 연관-동료들은, 우주 조화-협동자로서, 체험적 신(神)의 그리고 진화하는 우주의 실시간적 발전에 대해 적절한 창조적 응답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풍성하게 자질로서 부여받은 것처럼 보인다.

26:2.7 (287.6) 3차 초(超)천사들은 이들 순환회로들의 일곱 영들 안에서 기원된다. 개별 하보나 순환회로들에서, 그들

각각은 중앙우주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3차 계층에 해당하는 충분한 숫자의 높은 초(超)천사의 사명활동자들을 창조하도록 무한한 영에 의해 능력을 부여받는다. 그 순환회로 영들이 시간의 순례자들의 하보나 도착 전에 이 천사 사명활동자들 중 비교적 소수를 생산하는 동안, 일곱 주(主) 영들은 그랜환다의 도착 시까지 2차 초(超)천사의 창조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계층들 중 더 오래되었으므로, 3차 초(超)천사가 먼저 배려를 받아들일 것이다.

제 3 장. 3차 초(超)천사

26:3.1 (288.1) 일곱 주(主) 영들의 이들 봉사원은 하보나의 다양한 순환회로들의 천사 전문가들이며, 그들의 사명활동은 시간의 상승하는 순례자들과 영원의 하강하는 순례자들 둘 모두에게 해당한다. 완전한 중앙우주에 속한 10억 개의 연구 세계들에서는, 모든 계층들에 속한 너희 초(超)천사 연관-동료들이 너희에게 완전히 보일 것이다. 가장 높은 의미로 볼 때, 그곳에서 너희 모두는 형제우애관계를 가질 것이고 상호 접촉 그리고 동정심을 갖는 납득하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또한 너희는 하강하는 순례자들을 충분히 인식하게 될 것이고 절묘하게

형제우애관계를 가지게 될 것인데, 그들은 첫 번째 순환회로의 선도(先導) 세계를 통하여 하보나에 들어가고 일곱 번째를 향해 밖으로 진행하는, 안쪽으로부터 밖을 향하는 이 순환회로들을 지나가는 파라다이스 시민들이다.

26:3.2 (288.2) 일곱 초우주들로부터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반대방향으로 하보나를 통과하는데, 일곱 번째 순환회로의 선도(先導) 세계의 길로 들어가고 안쪽으로 진행한다.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그리고 이 순환회로에서 저 순환회로로 상승하는 창조체들의 진행에는 어떤 시간제한도 존재하지 않는데, 모론시아 세계들에서 거주하는 자들에게 어떤 고정된 시간제한도 독단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것과 똑같다. 그러나 적당하게 발전된 개별존재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역우주 훈련 세계들에서 머무는 것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데, 어떤 순례자도 진보적 영성화의 일곱 하보나 순환회로들의 통과 전체를 피할 수는 없다.

26:3.3 (288.3) 시간의 순례자들의 봉사에 주로 배정되는 3차 초(超)천사 무리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 된다:

26:3.4 (288.4)

1. 조화 감독자. 심지어는 완전한 하보나에서도, 다음 단계의 파라다이스 성취를 위하여 시간의 필사자들을 준비시키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체계를 유지하고 조화-협동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종류의 조화-협동하는 영향들이 요구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것이 조화감독자들의 실제적 임무이다—모든 것이 부드럽고 신속하게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순환회로에서 기원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보나에 두루 봉사하고, 그 순환회로들에서의 그들의 현존은 아무 것도 잘못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계층들—심지어는 복합적 차원들—의 개인성을 포함하는 활동의 다양성을 조화-협동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이 초(超)천사들로 하여금 요구되는 어느 곳이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다. 그들은 시간의 순례자들과 영원의 순례자들의 상호 납득에 막대하게 기여한다.

26:3.5 (288.5)

2. 기록자 우두머리. 이 천사들은 두 번째 순환회로에서 창조되지만 중앙우주 어디에서나 활동한다. 그들은 3중으로 기록하는데, 하보나의 문자적 서류철을 위해, 그들의 계층의 영적 서류철을 위해, 그리고 파라다이스의 공식 기록들을 위해 기록한다. 그 이외에도

그들은 1차 계층의 초(超)천사들의 지식의
보호관리자들인 파라다이스의 살아있는 도서관들로
수입하는 참된-지식의 활동행위들을 자동적으로
이행한다.

26:3.6 (288.6) 3. 방송자. 제3 순환회로 영의 자녀들은 비록
그들의 공식적 주둔지가 최 외곽 순환계 안에 있는 70번
행성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하보나에 두루 기능한다. 이
주(主)기술인들은 중앙 창조의 방송 접수자.들 그리고
송출인 들이고 파라다이스에 있는 모든 신(神) 현상들에
대한 공간 보고서들의 지도자들이다. 그들은 공간의 기초
순환회로들 전체를 운영할 수 있다.

26:3.7 (288.7) 4. 메신저들은 4번 순환회로에서 기원된다. 그들은
개인적 전송을 요구하는 모든 소식들을 지참하는
자들로서 파라다이스-하보나 체계를 돌아다닌다. 그들은
그들의 동료들, 천상의 개인성들과 파라다이스 순례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시간의 상승하는 혼들을 봉사한다.

26:3.8 (289.1) 5. 정보조화-협동자. 다섯 번째 순환회로 영의
자녀들인 3차 이 초(超)천사들은 상승하는 순례자들과
하강하는 순례자들 사이에 형제우애의 관계적-연합을

항상 증진시키는 현명하고 동정심이 많은 존재들이다. 그들은 하보나의 거주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사명활동하는데, 우주들의 우주의 관련사들에 대해 그들에게 수시로 알려줌으로써 특별히 상승자들에게 그렇게 한다. 방송자들 그리고 반영자들과의 개인적 접촉 덕분에, 하보나의 이 "살아있는 신문들"은 중앙우주의 광대한 새 순환회로들을 지나가는 모든 정보에 순식간에 정통하게 된다. 그들은 하보나 도표 방식에 의해 정보를 확보하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가장 빠른 전신 기술로 기록하기에 천 년이 걸릴 만큼 많은 정보를 유란시아 시간으로 한 시간 안에 자동으로 흡수시킬 수 있다.

26:3.9 (289.2) 6. 운송개인성. 제6번 순환회로에서 기원되는 이 존재들은 대개 최 외곽 순환회로 안에 있는 40번 행성으로부터 활동한다. 신(神) 모험여행에서 과도기적으로 실패한 실망된 후보자들을 데려가는 것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하보나의 봉사에 들어오고 나가야만 하는, 그리고 공간 횡단자들이 아닌 모든 존재들에게 봉사할 준비를 하고 서 있다.

26:3.10 (289.3)

7. 예비무리단. 상승하는 존재들, 파라다이스 순례자들, 그리고 하보나에 머무는 다른 계층의 존재들과의 활동에서 일어나는 동요들 때문에 일곱 번째 순환계의 선도(先導) 세계에 이 초(超)천사 예비자 들을 유지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기원된다. 그들은 특별한 설계 없이 창조되고, 3차 계층의 초(超)천사 연관-동료들이 하는, 힘이 덜 드는 위상의 어떤 임무에 봉사하기에 적합하다.

제 4 장. 2차 초(超)천사

26:4.1 (289.4)

2차 초(超)천사들은 중앙우주의 일곱 행성 순환회로들에 대한 사명활동자들이다. 일부는 시간의 순례자들에 대한 봉사에 헌신하고, 전체 계층의 절반은 영원의 파라다이스 순례자들에 대한 훈련에 배정된다. 이 파라다이스 시민들은, 하보나 순환회로들을 통과하는 그들의 순례여행에 있어서,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으로부터 온 자원자들에 의해 돌보아지는데, 이것은 최초의 최종자 집단의 완성 이후로 계속되어 조치이다.

26:4.2 (289.5) 상승하는 순례자들에 대한 사명활동에 그들이 정기적으로 배정되는 것에 따라, 2차 초(超)천사들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집단으로 활동한다:

26:4.3 (289.6) 1. 순례자 조력자.

26:4.4 (289.7) 2. 최극위 안내자.

26:4.5 (289.8) 3. 삼위일체 안내자.

26:4.6 (289.9) 4. 아들 발견자.

26:4.7 (289.10) 5. 아버지 안내자.

26:4.8 (289.11) 6. 조연자와 충고자.

26:4.9 (289.12) 7. 휴식 보충자.

26:4.10 (289.13) 활동하는 이 집단들은 모든 일곱개의 창조 유형 각각의 천사들을 포함하며, 공간의 어떤 순례자는 그 순례자가 탄생된 그 초우주를 지배하는 주(主) 영 안에서 기원된 2차 초(超)천사에 의해 항상 훈련된다. 너희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하보나를 달성할 때, 너희는 창조된 본성이 오르본톤의 주(主) 영으로부터 도출된—너희 자신의 진화된 본성들과 비슷한—초(超)천사들에 의해

분명하게 선도(先導)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훈련자들은 너희 자신의 초우주의 주(主) 영으로부터 탄생하기 때문에, 그들은 파라다이스 완성을 달성하기 위한 너희의 모든 수고에 있어서 너희를 납득하고 위로하며 도와주도록 특별하게 분별화되어 있다.

26:4.11 (290.1) 시간의 순례자들은, 일곱 초우주들의 본부로부터 활동하는, 2품천사들의 1차 계층의 운송개인성들에 의해 하보나의 암흑중력체들을 지나 외부 행성 순환회로를 향해 운송된다. 전부는 아니지만, 파라다이스로 상승하도록 허락을 받은, 행성 그리고 지역우주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세라핌천사들은, 하보나를 향한 긴 비행에 앞서 그들의 필사자 연관-동료들과 갈라질 것이며, 그들은 숭고한 임무를 위하여 당장에 오랜 기간의 집중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 세라핌천사로서 실존의 완전과 봉사의 최극위를 성취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시간의 순례자들을 재(再)가입시키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최종의 무리단에 관한 계시되지 않은 봉사에 대한 임무배정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주 아버지를 달성해 온 그 필사자들의 경로를 언제까지나 따라가는 그들 중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이다.

26:4.12 (290.2)

순례자는 하보나의 접수 행성, 일곱 번째 순환회로의 선도(先導) 세계에 오직 한 가지 완전의 자질, 목적의 완전을 가지고 도착한다. 우주 아버지가 명령하셨다: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것은 공간의 세계들의 유한한 자녀들에 대한 몹시 놀라운 초청-명령이다. 그 명령의 선포는 위대한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그 중대한 명령의 성취 그리고 실현을 이룩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천상의 존재들의 협조적 노력 안에서 모든 창조가 활기를 띠게 해 왔다.

26:4.13 (290.3)

생존을 위한 우주 기획에서의 모든 조력자 무리의 사명활동을 통해 그리고 그러한 봉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마침내 하보나 접수 세계에 맡겨질 때, 너희는 오직 한 종류의 완전—목적의 완전—만을 가지고 도착한다. 너희의 목적은 이미 철저하게 증명되었다; 너희 신앙은 시험을 거쳐왔다. 너희는 실망에 대한 내성이 갖추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우주 아버지를 식별하는 데 실패한 것조차도, 하보나의 완전한 구체들에 이르기 위하여 모두가 거쳐야 하는 체험을 통과한, 상승 필사자의 신앙을 흔들거나 그의 신뢰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없다. 너희가 하보나에 도착할 때는, 너희의 성실성은 숭고하게 된다.

목적의 완전과 소망의 신성이, 신앙의 굳건함과 함께, 영원의 안정된 거주지로 너희가 입장하는 것을 보장해 놓았다; 시간의 불확실성으로부터의 너희의 해방은 이제 충족되었으며 그리고 완료되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시간의 체험적 신(新)시대 안에서 그리고 공간의 세계 학교들 위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오며 만나려고 하였던 하보나의 문제들과 파라다이스의 광대함에 얼굴을 마주하기까지 오고야 만 것이다.

26:4.14 (290.4) 신앙은 상승하는 순례자에게 영원의 관문까지 이르는 시간의 자녀들을 입장시키는 목적의 완전을 얻게 해주었다. 이제는 순례자 조력자들이, 개인성의 파라다이스 완전에 너무나도 필수 불가결한 납득에서의 완전함과 이해의 기법을 발전시키는 일을 시작해야만 한다.

26:4.15 (290.5) 이해하는 능력은 파라다이스에 이르는 필사자의 여권(旅券)이다. 기꺼이 믿고자함은 하보나에 이르는 열쇠이다. 아들관계를 받아들이는 것, 내주하는 조절자와의 협동이 진화적 생존에 대한 값이다.

제 5 장. 순례자 조력자

26:5.1 (291.1) 2차 초(超)천사의 일곱 집단들 중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순례자 조력자, 재빠르게 납득하고 폭넓은 동정심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들은 중앙우주의 안정된 세계들과 그리고 정착된 섭리로 오는 많은-여행을 거친 공간의 상승자들을 환영해주는 존재들이다. 이들 높은 사명활동자들은 외부 순환회로의 선도 세계에 그랜환다가 착륙함과 동시에, 이들 중 첫 순례자가 동조되어 내부 하보나 순환회로의 선도(先導) 세계에 도착하면서, 영원의 파라다이스 순례자들을 위한 그들의 활동을 시작한다. 아득히 먼 그 시절에, 파라다이스에서 온 순례자들과 시간의 순례자들이 4번 순환회로의 접수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26:5.2 (291.2) 이 순례자 조력자들은, 하보나 세계들 중 일곱 번째 순환계에서 기능하는데, 세 개의 주요부서, 첫 번째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최극으로 납득하는 것; 두 번째는, 아버지-아들 동반자 관계에 대한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무한한 영에 대한 지적으로 인식하는 것; 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위한 그들의 일을 행위로 이끈다. 이 교육 위상들 각각은 일곱 부서들로, 각 부서는 열 두 분과들로, 각 분과는 70개의 부속 집단들로 나뉘며;

이 70개 교육 부속 집단들 각각은 1,000개로 구분되어 제시된다. 더 자세한 교육은 그 후의 순환계들에서 제공되지만, 파라다이스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윤곽은 순례자 조력자들이 가르친다.

26:5.3 (291.3) 이 때 그것은 공간의 신앙-시험을 받은 그리고 많은-여행을 한 순례자들에게 주어지는 초보적이자 기본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하보나에 도착하기 오래 전에, 이들 상승하는 시간의 자녀들은 불확실성 위에서 마음껏 축제를 즐기고, 실망 위에서 살찌우고, 외견상 명백한 실패 위에서 열중하고, 어려움의 현존 속에서 활력이 북돋고, 광대함에 마주하면서 불굴의 용기를 내보이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의 도전에 직면하였을 때 정복당하지 않는 신앙을 발휘하는 것을 배워 왔다. 그 후로 오랫동안, 이 순례자들의 투쟁 구호는 바로 이것이었다: “하느님과의 연락 안에서는 어떤 것도—절대로 그 어떤 것도—불가능은 없다.”

26:5.4 (291.4) 하보나 순환계들 각각의 시간의 순례자들에서의 분명한 필요한 요구들이 있다; 모든 순례자는 그 특별한 유형의 상승하는 창조체에 도움을 주는 데에 본성에서

적합한 초(超)천사들의 보호 아래에 계속 있는 동안에는, 숙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은 중앙우주에 도착한 모든 상승자들에게 공정하게 획일적인 것이다. 이 성취 과정은 양적이고 질적이며 체험적—지능적, 영적 그리고 최극—이다.

26:5.5 (291.5) 시간은 하보나 순환계들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제한된 방법으로 진보의 가능성들 안으로 들어가지만, 성취는 최종적이고 최극 시험이다. 너희가 안쪽을 향하여 다음 순환계로 지나갈 자격이 있다고 너희 초(超)천사 연관-동료가 판단하는 바로 그 순간에, 너희는 일곱 번째 순환회로 영의 열 두 보조자들 앞으로 데려감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너희는 너희가 기원된 그 초우주에 의해 그리고 너희가 태어난 그 체계에 의해 결정된 그 순환계의 시험을 지나가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 순환계의 신성 달성은 선도(先導) 세계에서 일어나고 상승하는 순례자의 초우주의 주(主) 영의 영적 인식 그리고 실현 속에 있다.

26:5.6 (291.6) 외부 하보나 순환계의 일이 완결되어지고 제시된 과정이 숙달되면, 그 순례자 조력자들은 그들의 주체들을

다음 순환계의 선도(先導) 세계로 데리고 가서, 최극위 안내자들의 보호 아래에 그들을 맡긴다. 순례자 조력자들은 그 전환을 유쾌하면서 동시에 유익하게 만드는 일을 돕기 위하여 항상 일정 기간 동안 머문다.

제 6 장. 최극위 안내자

26:6.1 (292.1) 공간의 상승자들은 일곱 번째로부터 여섯 번째 순환계로 전환될 때 “영적 졸업생들”로 명명되며 최극위 안내자들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에 들어간다. 이 안내자들은 졸업생 안내자들—무한한 영의 높은 개인성들—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은 그들의 봉사원 연관-동료들과 함께 상승 그리고 하강 순례자들 둘 모두를 하보나의 모든 순환회로들에서 사명활동 일을 한다. 최극위 안내자들은 중앙우주의 여섯 번째 순환계에서만 기능한다.

26:6.2 (292.2) 상승자들이 최극 신성의 새로운 실현을 성취하는 것은 바로 이 순환계에서이다. 진화적 우주들 안에서의 그들의 긴 생애를 통하여 시간의 순례자들은 시간-공간 창조계에 대한 전능의 전반적-통제의 실체를 점점 더 깨달아 가는 체험을 해오고 있다. 이곳, 하보나

순환회로에서, 그들은 시간-공간 합일—최극자 하느님의 영적 실체—의 중앙우주 근원을 만나는 일에 더욱 접근한다.

26:6.3 (292.3) 나는 이 순환계에서 무엇이 발생하는지 설명하기가 약간 곤란하다. 최극위의 어떤 개인성구현된 현존도 상승자들에게 감지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일곱 번째 주(主) 영과의 새로운 관계들은 최극존재의 이비(非)접촉성을 보상한다. 그러나 그 기법을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함과는 상관없이, 상승하는 각 창조체는 최극존재의 계시되지 않은 활동을 가정하지 않으면 만족스럽게 설명될 수 없는, 어떤 변환하는 성장, 어떤 새로운 의식의 집대성활동, 어떤 새로운 목적의 영성화, 신성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을 체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신비스러운 활동행위들을 목격해 온 우리들에게는, 그것은 마치 최극자 하느님이 그의 체험적 자녀들에게 그들의 체험적 수용력의 바로 그 한계까지,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그리고 실존적인 신(神)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최극위의 삼위일체의 신성 차원을 관통하는 일에 그들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때 그들이 그토록 필요하게 될, 지적 파악의, 영적 통찰력의,

그리고 개인성 뻔침에서의 저들 향상을 애정을 다하여
증여해 온 것처럼 보인다.

26:6.4 (292.4) 자기 학생들이 진보할 정도로 성숙하였다고
최극위 안내자들이 판단할 때, 그들은 70인 위원회에 그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위원회는 6번 순환회로의
선도(先導) 세계에서 검열자로 봉사하는 혼합된 집단이다.
최극존재에 대한 그리고 최극위의 삼위일체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따라 이 위원회가 만족하게 된 후에, 그
순례자들은 다섯 번째 순환회로로 이동하도록 인가를
받는다.

제 7 장. 삼위일체 안내자

26:7.1 (292.5) 삼위일체 안내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진보하는
순례자들에 대한 하보나 훈련의 다섯 번째 순환계에 속한
지칠 줄 모르는 사명활동자들이다. 영적 졸업생들은
여기에서 “신(神) 모험여행을 위한 후보자들”이라는
칭함을 받는데 왜냐하면 무한한 영에 대한 개인성 인식을
성취하고자 시도하기 위해 준비함에 있어서 신성한
삼위일체에 관하여 그 순례자들이 증진된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삼위일체 안내자들의 지도 아래 이

순환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이 순환계의 세계들에서 그들이 성취하도록 장치된 그 높은 목표의 요구들을 만족시키기에 필요하게 될 여전히-더욱-고생스러운 그리고 훨씬-더-힘든 영적 노력의 본성을 그들이 식별하기 시작할 때 참된 연구와 실제적인 정신적 노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서 발견한다.

26:7.2 (292.6) 삼위일체 안내자들은 가장 신실하고 효과적이다; 각 순례자는, 이 계층에 속하는 2차 초(超)천사들 중 하나의 전심전력의 배려를 받아들이고, 온전한 애정을 누린다. 시간의 순례자도, 다가오는 신(神) 모험여행의 본성과 기법에 관하여 그 상승자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다른 영적 존재들의 무리와 이 안내자들의 도움 그리고 보조가 없다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첫 번째 접근 가능 개인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26:7.3 (293.1) 이 순환회로에서의 훈련 과정이 완료된 후에, 삼위일체 안내자들은 그들의 학생들을 그것의 선도(先導) 세계로 데리고 가며, 신(神) 모험여행을 위한 후보자들의 시험관들 그리고 보증인들로서 기능하는 많은

삼위일체(三元一體) 위원회들 중 하나 앞에 그들을 출석시킨다. 이 위원회들은 최종자 중 한 명, 1차 초(超)천사의 계층의 행위의 지도자들 중 한 명, 그리고 공간의 단독 메신저 또는 파라다이스의 삼위일체화 아들 한 명으로 구성된다.

26:7.4 (293.2) 상승하는 혼이 파라다이스를 향해 실재적으로 출발할 때, 오직 운송 삼총사 즉: 초(超)천사 순환계 연관-동료, 졸업생 안내자, 그리고 후자의 항상-현존하는 봉사원 동료만이 그와 대동한다. 하보나 순환회로들로부터 파라다이스를 향한 이 짧은 여행들은 시험적 여행이다; 상승자들은 아직 파라다이스 지위를 갖지 않는다. 그들은 우주 아버지의 달성과 하보나 순환회로들의 최종적 통과 다음에 있는 일시적 시간 휴식을 지나가기 전까지는 파라다이스에서의 거주 지위를 얻지 못한다. 신성한 휴식 이후에야 그들은 "신성의 본질"과 "최극위의 영"에 참여하고 그리하여 삼위일체의 현존 안에서 그리고 영원의 순환계 안에서 실제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26:7.5 (293.3) 통과 삼총사에 속하는 상승자의 동행자들은 그가 삼위일체의 영적 휘광의 지리적 현존 위치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성 인식을 구성하기에 충분할 만큼 무한한 영을 인식하고, 식별하고, 이해하고 있는 자신의 어려운 임무 안에 있는 순례자에게 모든 가능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파라다이스에 있는 모든 상승하는 순례자는 삼위일체의 지리적 또는 위치적 현존을 식별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신(神)들의, 특별히 셋째 개인의 지적 실체와 접촉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아버지와 아들의 영적 현존의 실체를 인식하거나 심지어 부분적으로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우주 아버지에 대해 최소한의 영적 이해를 갖는 것은 여전히 더 더욱 어려운 일이다.

26:7.6 (293.4) 무한한 영에 대한 추구가 실패하는 일은 드물며, 피 교육자가 신(神) 모험여행의 이 위상에서 성공을 이룩하였을 때, 삼위일체 안내자들은 하보나의 네 번째 순환계에서 아들 발견자들의 사명활동으로 그들을 옮길 준비를 한다.

제 8 장. 아들 발견자

26:8.1 (293.5) 네 번째 하보나 순환회로는 때로 “아들들의 순환회로”라고 불린다. 상승하는 순례자들이 영원한 아들과의 납득하는 접촉을 이루기 위하여 이 순환회로의 세계들로부터 파라다이스로 가는 반면, 하강하는 순례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 아들들의 본성과 임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이 순환회로에 속한 세계들에서 성취한다. 상승하는 순례자들과 하강하는 순례자들 둘 모두에 대해 상호적 사명활동의 특별한 봉사 학교를 파라다이스 미가엘들의 예비무리단이 유지하는 이 순환회로 안에는 일곱 세계들이 있다; 시간의 순례자들과 영원의 순례자들이 서로를 상호적으로 진실 되게 처음으로 납득하게 되는 일이 미가엘 아들들의 이 세계들에서 일어난다. 여러 면에서 볼 때, 이 순환회로에서의 체험은 하보나에 머무는 전체 기간 중 가장 흥미로운 것들이다.

26:8.2 (294.1) 아들 발견자들은 네 번째 순환회로의 상승하는 필사자들에 대한 초(超)천사의 사명활동자들이다. 영원한 아들의 삼위일체 관계들의 실현을 위해 그들의 후보자들을 준비하는 일반적인 일 이외에, 이들 아들 발견자들은 그들의 피교육자들을 너무나도 충분히

교육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성공적이 될 것인데:
첫째는, 아들에 대한 적절한 영적 이해에 있어서; 두
번째는, 아들에 대한 만족스러운 개인성 인식에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무한한 영의 개인성으로부터 아들이
고유하게 독특한 점에 있어서 그러하다.

26:8.3 (294.2) 무한한 영의 달성 이후에는, 아무 시험도 더 이상
수행되지 않는다. 내부 순환계들의 시험은 신(神)들의
뒤덮음 안에 있을 때 순례 후보자들의 공적(功績)이다.
승진은 순전히 개별존재의 영성에 의해 결정되지만,
하느님들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소유를 단정하지
못한다. 실패의 사건 안에서는 어떤 이유도 영원히
지정되지 않으며, 후보자들 자신이나 그들의 다양한
교사들 그리고 안내자들도 전혀 꾸지람을 듣거나 비판을
받지 않는다. 파라다이스에서는, 실망감이 패배로
간주되는 일이 결코 없으며; 연기되는 일은 결코 치욕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시간의 외견상 실패들은
영원에서의 의의(意義)깊은 지연과 결코 혼동되지 않는다.

26:8.4 (294.3) 신(神) 모험여행에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 실패로
보이는 지연을 체험하는 순례자는 많지 않다. 1번

초우주로부터 온 순례자가 첫 번째 시도에서 때때로 성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두가 무한한 영을 달성한다. 영을 달성한 순례자들은 아들을 발견하는 일에 실패되는 일이 드물며; 첫 번째 모험여행에서 실패한 그들 중에서, 거의 모두는 3번과 5번 초우주로부터 흩어져 나온다. 영과 아들을 발견한 후, 아버지를 달성하는 첫 번째 모험 여행에서 실패하는 자들은, 일부가 2번과 3번으로부터 그렇게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6번 초우주로부터 흩어져 나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러한 명백한 실패에 대하여 어떤 선하고도 만족스러운 이유가 있음을 분명하게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체 안에서는,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자연에 불과하다.

26:8.5 (294.4) 신(神) 모험여행을 향한 실패된 후보자들은 1차 초(超)천사들의 집단인 임무부와 우두머리들의 관할권 아래에 놓이고, 1,0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공간의 영역들에 대한 활동으로 귀환된다. 그들은 그들이 태어난 그 초우주로 돌아가는 일이 결코 없으며, 항상 두 번째 신(神) 모험여행을 위해 준비하는 그들의 훈련을 위해 가장 알맞은 초우주로 돌아간다. 이러한 봉사 이후에, 그들 자신의 활동에 따라, 그들은 하보나의 외부 순환계로

돌아가는데, 중지되었던 그들의 생애의 순환계로 즉시 호송되며, 신(神) 모험여행을 위한 그들의 준비를 곧 시작한다. 2차 초(超)천사들은 그들의 주체들을 선도(先導)하여 두 번째 시도를 성공적으로 하는 일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동일한 초(超)천사 사명활동자들 그리고 다른 안내자들이 이 두 번째 모험여행 기간 동안 이들 후보자들을 항상 동행한다.

제 9 장. 아버지 안내자

26:9.1 (294.5) 순례자 혼이 하보나의 세 번째 순환계를 달성할 때, 그는 아버지 안내자들, 초(超)천사 사명활동자들 중 나이가 더 많고 매우 노련하며 가장 체험을 많이 한 자들의 감독 아래로 들어온다. 이 순환회로의 세계들에서 아버지 안내자들은 지혜 학교들과 기법 대학들을 유지하는데 그곳에서는 중앙우주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이 교사들로서 봉사한다. 영원 달성을 이룩하는 이 초월적 모험여행에 나선 시간의 창조체에 대한 봉사에서는, 그 어떤 것도 소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26:9.2 (294.6) 우주 아버지의 달성은, 거쳐야 될 순환회로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을 향한 여권이다. 그러므로

시간의 마지막 모험이 곧 시작될 것임을; 영원의 문지방으로 통과하여 파라다이스로 들어가는 길을 공간의 다른 창조체가 찾고 있음을 운송 삼총사가 알릴 때 그것은 3번 순환계의 선도(先導) 세계에서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다.

26:9.3 (295.1) 시간의 시험은 거의 끝났다; 영원을 향한 경주는 모두 되어왔고 다만 달릴 뿐이다. 불확실성의 날들은 끝났으며; 의심의 유혹은 사라지고 있다; 완전하게 되라는 명령은 이행되었다. 시간의 창조체이자 물질적 개인성이 지능 실존의 가장 밑바닥으로부터 공간의 진화 구체들을 상승해왔고, 그리하여 상승 계획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한편 그 세계들의 그의 비천한 창조체들에게 우주 아버지의 명령: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 하라.”는 명령의 공의(公義)와 정의(正義)를 언제까지나 실증한다.

26:9.4 (295.2) 한 걸음 한 걸음, 한 생애 한 생애, 한 세계 한 세계, 상승하는 생애가 정복되어 왔고, 신(神)의 목표가 달성되어 왔다. 생존이 완전 안에서 완성하고, 완전은 신성의 최극위 안에서 총만 된다. 시간은 영원 안에서 사라지고; 공간은 우주 아버지와 의 경배하는 정체성과

조화 안에 삼켜진다. 하보나의 방송은 영광의 공간 보고서, 동물적 본성과 물질적 기원을 갖는 양심적인 창조체들이 진화하는 상승을 통하여, 참으로 진리 안에서 실체 안에서 그리고 영원히 하느님의 완전해진 아들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번개처럼 내보낸다.

제 10 장. 조언자들과 충고자

26:10.1 (295.3) 두 번째 순환계에 속하는 초(超)천사 조언자들과 충고자들은 영원의 생애에 관한 시간의 자녀들의 강사들이다. 파라다이스의 달성은 새롭고도 높은 계층의 책임을 수반하고, 두 번째 순환계에 머무는 일은 헌신된 이 초(超)천사들의 도움이 되는 조언을 받아들이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26:10.2 (295.4) 신(神) 달성에 대한 첫 시도에서 성공하지 못한 자들은, 초우주 봉사로 돌아가기 전에, 실패한 그 순환계로부터 두 번째 순환계로 직접 나아간다. 그래서 조언자들과 충고자들 역시 이 실망한 순례자들의 조언자들과 위로자들로서 봉사한다. 그들은 가장 큰 실망에 방금 부딪혔고, 이 실망은 사다리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혼돈에서 영광으로 올라갔던, 긴 목록의

그러한 체험과—그 광대함을 제외하고—조금도 다를 바 없다. 체험적 잔을 끝까지 마신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나는 그들이 시간 속에서 일시적 실망감을 겪는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는 가장 높은 유형의 사명활동자들로서 초우주 근무로 일시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해 왔다.

26:10.3 (295.5) 2번 순환회로에 오래 머문 후에, 실망한 주체들은 이 순환계의 선도(先導) 세계에 위치하고 있는 완전협의회에 의해 검사를 받고 하보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증된다; 비(非)영적 지위가 고려되는 한, 이것은 마치 그들이 실재적으로 신(神) 모험여행에서 이미 성공하였던 것처럼 시간의 우주들 안에서 동일한 자격을 그들에게 부여한다. 그러한 후보자들의 영은 전적으로 인정받을 만했다; 그들의 실패는 접근하는 기법의 어떤 위상 안에 또는 그들의 체험적 배경의 어느 부분 안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다.

26:10.4 (295.6) 그 때 그 순환계의 조연자들이 파라다이스에 있는 임무배정의 우두머리들 앞으로 그들을 데려가고 그들은 공간의 세계들에서 시간의 봉사에 귀환 한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전의 날과 시대의 임무로

돌아간다. 어느 다른 날, 그들은 가장 실망했던 그 순환계로 돌아오고 신(神) 모험여행을 새롭게 시도한다.

26:10.5 (296.1) 두 번째 순환회로에서 성공한 순례자들에게는 진화적 불확실성의 자극이 끝나지만, 영원한 임무를 띤 모험여행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 순환계에 머무는 것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고 매우 유익한 반면, 그 이전(以前) 순환계들의 어떤 기대에 부푼 열정은 없다.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세계들로 돌아가서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실제로 바라면서, 즐거운 시샘으로 긴 투쟁을 되돌아보는 순례자들이 많은데, 이것은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너희 필사자들이 초기의 젊은 삶의 투쟁을 가끔 돌아보면서 너희의 삶을 다시 한 번 살 수 있기를 참으로 바라는 것과 같다.

26:10.6 (296.2) 그러나 가장 안쪽의 순환계 횡단이 바로 앞에 있고, 그 후에 곧 마지막 운송 수면상태가 종료될 것이며, 영원한 생애의 새로운 모험여행이 시작될 것이다. 두 번째 순환계에 있는 조연자와 충고자는 이 위대한 마지막 휴식, 상승하는 생애의 신기원적 단계들 사이에 영원히 끼어

있는 필연적 잠을 위해 그들의 피지배자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한다.

26:10.7 (296.3) 우주 아버지를 달성한 상승하는 그 순례자들이 두 번째-순환계 체험을 완료하면, 그들의 항상-참여하는 졸업생 안내자들은 그들을 최종적 순환계로 받아들인다는 명령을 내린다. 이 안내자들은 그들의 주체들을 개인적으로 선도(先導)하여 내부 순환계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그들을 휴식보완자, 하보나의 세계 순환회로들에 있는 시간의 순례자들에 대한 사명활동에 배정된 2차 초(超)천사 계층들 중 마지막 계층의 보호 아래에 둔다.

제 11 장. 휴식보충자

26:11.1 (296.4) 마지막 순환회로에서 보내는 상승자의 대부분의 시간은 파라다이스 거주자 절박한 문제들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에 바쳐진다. 대부분이 계시되지 않은, 광대하고 다양한 존재들의 무리가 하보나 세계들의 이 내부 고리의 영원한 그리고 과도기 거주민들이다. 그리고 이 다양한 유형들의 혼합은 초(超)천사인 휴식보완자들에게,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교육을

증진시키는 일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풍성한 상황적 환경을 제공하는데, 특별히 파라다이스에서 곧 만나게 되는 많은 존재 집단들에게 적응하는 문제들에 관한 것을 제공한다.

26:11.2 (296.5) 이 내부 순환회로에 거주하는 그들 중에는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이 있다. 1차 그리고 2차 초(超)천사들은 이 아들들의 공동 무리단의 전반적 보호관리자들인데, 필사자 최종자의 삼위일체화 후손 그리고 파라다이스 시민들의 비슷한 자손을 포함한다. 이들 아들 중 일부는 초우주 정부에 포용되고 임명되며, 일부는 다양하게 배정되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부 하보나 순환회로의 완전한 세계들에 있는 공동 무리단에 함께 모여 있다. 이곳에서, 그들은 초(超)천사의 감독 아래에서 높은 파라다이스 시민들의 특별하고 이름없는 무리단에 의해 어떤 미래의 활동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랜환다의 시대 전에 영원으로 늘 계신이에 대한 첫 번째 집행적 보좌관들이었다. 삼위일체화된 존재들 중 이 두 독특한 집단들이 먼 미래에 함께 일하게 되리라고 추측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파라다이스

삼위일체화 최종자 무리단의 예비자들이 되는 것이 그들의 공통 운명이라는 것에 적지 않은 이유가 있다.

26:11.3 (296.6) 가장 안쪽에 있는 이 순환회로에서, 상승하는 순례자들과 하강하는 순례자들 둘 모두는 서로 그리고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과 형제우애화 한다. 그들의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이 아들들은 상호-연관으로부터 큰 유익을 도출하며, 필사자 최종자들 중 삼위일체화된 아들들과 파라다이스 시민들 중 삼위일체화 아들들의협동 형제우애관계를 촉진시키고 보장하는 것이 초(超)천사의 특별한 임무이다. 초(超)천사의 휴식보완자들은 그들의 훈련보다는, 그들이 다양한 집단과 분별 있는 관계를 갖도록 조장하는 데에 더 관심을 둔다.

26:11.4 (297.1) 필사자들은 이러한 파라다이스 명령을 받아들여 왔다: “너희 파라다이스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 하라.” 감독하는 초(超)천사들은 삼위일체화된, 이 공동 무리단의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선포 한다: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들이 그들을 알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상승하는 형제들을 납득하라.”

26:11.5 (297.2) 필사 창조체는 하느님을 발견해야만 한다. 창조자 아들은 그가 사람—가장 낮은 의지 창조체—을 발견할 때까지 결코 멈춘 적이 없다. 의심할 여지없이, 창조자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필사자 자녀들은 어떤 미래의 그리고 미지의 우주봉사를 준비하고 있다. 둘 모두 체험적 우주 전체를 지나가고 그리하여 그들의 영원한 임무를 위해 교육되고 훈련된다. 우주들에 두루, 이 창조체와 창조자의 혼합, 인간의 것과 신성한 것의 독특한 혼합이 발생하고 있다. 지각없는 필사자들은, 사람모습으로 하느님이 나타남으로서, 특히 약하고 가난한 자를 향하여, 신성한 자비와 온정을 현시활동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인간존재로서 자비와 관용의 그러한 현시활동은 오히려 필사 사람에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영이 내주한다는 증거; 결국은 창조체는 신성이 동기를 일으킨다는 증거로서 여겨야 할 것이다.

26:11.6 (297.3) 첫째 순환계에서의 체류가 끝나갈 때가 되면 그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초(超)천사의 첫 번째 계층 중 휴식 선동자들을 처음으로 만난다. 이들은 마지막 부활의 변형실을 위한 그들의 준비를 완료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원의 문지방에 서 있는 그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나오는

파라다이스의 천사들이다. 너희는 시간을 종료하는 수면상태로부터 영원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내부 순환계를 다 지나가기 전까지는 실제로 파라다이스의 자녀들이 아니다. 완전하게 된 순례자들은 하보나의 첫 순환계에서 이 휴식을 시작하고 잠을 자게 되지만, 그들은 파라다이스의 해변에서 깨어난다. 영원한 섬으로 상승한 모든 존재들 중에서, 그렇게 도착한 자들만이 영원의 자녀들이다; 나머지는 방문자들로써, 거주 지위를 갖지 않은 손님들로서 간다.

26:11.7 (297.4) 그리고 이제, 하보나 생애의 최고점에서, 너희 필사자들이 내부 순환회로의 선도(先導) 세계에서 잠을 자게 될 때, 너희는 필사자 죽음이라는 자연적 잠에서 너희 눈을 감았을 때 너희가 기원된 그 세계들에서 너희가 했던 것처럼 홀로 휴식에 들어가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하보나를 향한 여행을 위해 준비하는 긴 운송 혼수상태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했던 것과도 다르다. 이제, 너희가 달성 휴식을 위해 준비함에 따라, 네 곁에는 첫 번째 순환계에서 너희와 긴 기간 같이 했던 연관-동료, 너희의 과도기가 완성되었고, 그리고 너희가 오직 완전의 마지막 손길을 기다린다는, 하보나의 서약으로서 너희와 함께 하나가

되어 휴식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고 있는, 장엄한 휴식보완자가 너를 따라 움직인다.

26:11.8 (297.5) 너희의 최초 변형은 정말로 죽음이었고, 두 번째는 이상적인 잠이었으며, 이제 세 번째 탈바꿈은 참된 휴식, 오랜 세월의 이완-휴식이다.

26:11.9 (297.6) [유버사로부터 온 지혜의 완전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27 편 1차 초(超)천사의 사명활동

27:0.1 (298.1) 1차 초(超)천사들은 파라다이스의 영원 섬에 있는 신(神)들의 숭고한 하인들이다. 그들은 빛과 정의(正義)의 경로들로부터 떨어진 것으로 알려진 적이 전혀 없었다. 출석 점호는 완벽하다; 이 장엄한 무리 중 어느 하나도 영원으로부터 잃어진 적이 없었다. 이 높은 초(超)천사들은 완전 존재들, 완전에서 최극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亞)절대도 아니고 절대적이지도 않다. 완전성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에, 이 무한한 영의 자녀들은 그들의 여러 가지 임무들의 모든 위상들에 있어서 교대로 그리고 의지에 따라 활동한다. 그들은 중앙우주의 다양한 1,000년마다의 모임과 집단적 재결합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파라다이스 밖에서는 광대하게 기능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신(神)들의 특별 메신저들로서 나아가기도 하며, 많은 숫자는 기술충고자들로 승격된다.

27:0.2 (298.2) 1차 초(超)천사들은 반역으로 인하여 고립된 세계들에서 사명활동하는 세라핌천사 무리를 지휘하는 임무를 맡기도 한다. 파라다이스 아들이 그러한 세계에 증여되고, 그의 임무를 완수하고, 우주 아버지에게로 상승하고, 받아들여지고, 고립된 이 세계의 인가받은 구원자로서 돌아오면, 새롭게 개선된 그 구체안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명활동 영들을 지휘하도록 임무배정 우두머리들에 의해 1차 초(超)천사가 항상 지명된다. 이러한 특별 봉사를 하는 초(超)천사들은 주기적으로 교대된다. 유란시아의 경우 현재 “세라핌천사들의 우두머리”는 그리스도 미가엘의 증여 시기 이래로 임무를 수행해 온 이 계층 중 두 번째이다.

27:0.3 (298.3) 영원 전부터 1차 초(超)천사들이 빛의 섬에서 봉사해 왔고 공간의 세계들에 대한 지도자 자격의 임무를 수행해 왔지만, 그들은 오직 시간의 하보나 순례자들이 파라다이스에 도착한 이후로부터만 지금처럼 분류되어

기능해 왔다. 이 높은 천사들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봉사 계층들 안에서 주로 사명활동을 한다:

27:0.4 (298.4) 1. 경배 지휘-안내자.

27:0.5 (298.5) 2. 철학의 스승.

27:0.6 (298.6) 3. 지식 보호관리자.

27:0.7 (298.7) 4. 행위 지도자.

27:0.8 (298.8) 5. 윤리 통역자.

27:0.9 (298.9) 6. 임무배정 우두머리.

27:0.10 (298.10) 7. 휴식 선동자.

27:0.11 (298.11) 상승하는 순례자들이 파라다이스 거주권을 실재적으로 달성하기 전에는 그들이 이 초(超)천사들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로 들어오지 않으며, 그 후에는 그들의 이름의 순서와는 반대로 이 천사들의 지도에 따라 훈련 체험을 통과해 지나간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휴식 선동자들의 감독 아래에서 너희 파라다이스 생애를 시작하고, 중간에 끼어든 계층들과 연속적인 기간을 보낸 후에, 경배 지휘-안내자들과 함께 이 훈련기간을 완결한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최종자의 끝없는 생애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제 1 장. 휴식 선동자

27:1.1 (299.1) 휴식 선동자들은 파라다이스의 검열자들인데, 그들은 중앙 섬으로부터 하보나의 내부 순환회로로 나아가고 거기에서 그들의 동료, 2차 계층의 초(超)천사들로 구성된 휴식보완자들과 협동한다. 파라다이스를 즐기는 것에 기본적인 한 가지는 휴식, 신성한 휴식이다; 이 휴식 선동자들은 영원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을 위하여 시간의 순례자들을 준비시키는 최종적 강사들이다. 그들은 중앙우주의 최종적 달성 순환계에서 활동하고, 그 순례자가 마지막 변형 수면상태, 영원의 영역 안으로 공간의 창조체를 졸업시키는 수면상태로부터 깨어날 때 그것을 계속한다.

27:1.2 (299.2) 휴식은 칠중 본성을 지닌다; 비교적 낮은 창조체 계층에서의 수면과 놀이의 휴식, 고등 존재들에 있는 발견, 그리고 최고유형의 영 개인성에 있는 경배가 있다. 또한 에너지 수입의 일반적 휴식, 존재의 물리적 또는 영적 에너지 재충전도 있다. 그 다음에는 통과 수면, 한 구체에서

다른 구체로 이동할 때 세라핌천사로 둘러싸이는 무의식 수면이 있다. 이 모든 것들과 전반적으로 다른, 탈바꿈의 깊은 수면상태가 있다, 이는 존재에서의 한 단계에서 다른 곳으로, 한 생애에서 다른 곳으로, 한 실존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의 과도기 휴식, 한 지위의 다양한 단계들을 거치는 진화와 대조되는, 실재적 우주 지위에서 끝없는 과도기에 참여하는 그런 수면이다.

27:1.3 (299.3) 그러나 마지막 행태변형 수면은 상승자 생애의 성공적인 지위 달성을 표시해 온 그 이전의 과도기 수면 이상의 어떤 것이다; 그로서 시간과 공간의 창조체들은 파라다이스의 무(無)시간 그리고 무(無)공간 거주지에서 주거 지위를 달성하려고 일시적이자 공간적 세계의 가장 안쪽 여백을 지나간다. 휴식의 선동자들 그리고 보완자들은 필사 창조체의 죽음에서의 생존에 세라핌천사들 그리고 연관된 존재들이 필수적인 것과 똑같이 이 초월하는 변형에 필수적이다.

27:1.4 (299.4) 너희는 최종 하보나 순환회로에서 휴식에 들어가고 파라다이스에서 영원히 부활된다. 그리고 너희가 거기에서 영적으로 재(再)개인성구현 하면서,

너희는 하보나의 가장 안쪽에 있는 순환회로에서 1차 초(超)천사로서 최종 수면상태를 산출했던 바로 그 초(超)천사인, 영원한 해변에 이른 너희를 환영하는 휴식 선동자를 즉시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우주 아버지의 손 안에 너희 정체성을 맡기려는 것을 다시 한 번 찬양하려고 준비하면서, 너희는 신앙의 마지막 위대한 뻔침을 상기할 것이다.

27:1.5 (299.5) 시간의 마지막 휴식을 즐겨왔고; 마지막 과도기 수면은 이미 체험되었고; 이제는 너희가 영원한 거주지의 해변에서 영속하는 삶으로 깨어난다. "그리고 더 이상의 수면이 없을 것이다. 하느님과 그의 아들의 현존이 너희 앞에 있고, 너희는 영원히 그의 하인이 된다; 너희는 그의 얼굴을 보아 왔고, 그의 이름은 너희의 영이다. 그곳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태양 빛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는 위대한 근원이며 중심이 그들에게 빛을 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언제까지나 끝없이 살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들 눈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울음도 없고, 더 이상의 고통도 없을 것이니, 이는 이전 것들은 지나갔기 때문이다."

제 2 장. 임무배정 우두머리

27:2.1 (300.1) 이것은 우두머리 초(超)천사, “기원적 원형틀 천사”에 의하여, 이들 천사 계층—1차, 2차, 그리고 제3의— 모든 세 개 계층의 조직을 주관하기 위하여 그때그때 지정하는 집단이다. 하나의 몸체로서, 초(超)천사들은, 이들 모든 영 개인성들을 언제까지나 주관하는, 파라다이스의 첫 번째 천사인 그들 상호간의 우두머리의 기능자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자치-관리적이고 그리고 자아-규율적이다.

27:2.2 (300.2) 임무배정의 천사들은, 파라다이스의 영화롭게 된 필사자 거주자들이 최종의 무리단에 받아들여지기 전에, 그들과 함께 행하는 것이 대단히 많다. 연구와 교육만이 파라다이스 도착자들의 독점적 직업은 아니며; 봉사 역시 파라다이스의 최종자-이전(以前) 교육 체험들 안에 있는 기본적 부분의 역할을 한다. 나는 상승한 그 필사자들이 여가의 기간을 보낼 때, 그들이 임무배정의 초(超)천사 우두머리들의 예비무리단과 형제우애를 가지고자 하는 일방적 애정을 보이는 것을 목격해 왔다.

27:2.3 (300.3) 너희 필사자 상승자들이 파라다이스를 달성하면, 너희의 사회적 관계는 고양되고 신성한 존재들의 무리와

그리고 영화롭게 된 동료 필사자들로 구성된 친밀한 군중들과 접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포함한다. 너희는 또한 파라다이스 시민들로 구성된 위를 향한 3,000가지 다른 계층들과, 초월자들로 구성된 다양한 집단들과, 그리고 유란시아에 계시된 바 없는 수많은 다른 유형의 파라다이스 거주자들과 영구적 거주자들과 과도기 거주자들과 반드시 형제우애관계를 가지게 된다. 파라다이스의 이 막강한 지능체들과 일관된 접촉을 가진 후에, 천사 유형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매우 평온하게 방문할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오래 접촉하였던 그리고 상쾌한 관계적-연합을 이루었던 그들을 그 세라핌천사들의 시간의 필사자들에게 상기시킨다.

제 3 장. 윤리 통역자

27:3.1 (300.4) 너희가 삶의 계단을 오르면 오를수록, 우주 윤리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윤리적 인식은 단지 어떤 개별존재가, 어떤 다른 개별존재 그리고 모든 다른 개별존재의 실존 안에 선천적으로 있는 권리를 인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적 윤리는 개인과 집단 관계에 대한 필사자 개념, 그리고 심지어는 모론시아 개념들까지도 훨씬 초월한다.

27:3.2 (300.5) 윤리는 파라다이스의 영광을 향한 그들의 긴 상승 기간에 있어서 시간의 순례자들에게 충분히 가르쳐지고 적절하게 배워진다. 안쪽을 향한 이 상승 생애가 공간의 탄생 세계들로부터 펼쳐짐에 따라, 상승자들은 우주 연관-동료들의 계속-넓어지는 모임에 집단에 집단을 추가하는 것을 계속해오고 있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파라다이스에 도착할 때까지 새로운 동료들 집단마다, 인지되어지고 또 동의되어야 할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 차원을 추가하며 만나게 되고 그러한 시기마다 윤리적 해석에 관한 도움이 되고 친근한 조언을 제공할 누군가를 그들이 실제로 필요 하게 된다. 그들이 윤리 가르침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많은 새로운 것과 접촉하는 비범한 과제에 직접 부딪쳐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그에 따라, 그들은 그렇게 수고하며 배워왔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적절하게 해석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

27:3.3 (300.6) 윤리 통역자들은 거주 지위 획득으로부터 필사자 최종자 무리단 안으로 정식 징병되기까지 확장되는 사건 많은 그 기간 동안 장엄한 집단들로 구성된 수많은 집단들에 적응하도록 그들을 돕는데 있어서 파라다이스

도착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도움을 준다. 상승하는 순례자들인 수많은 유형의 파라다이스 시민들 대부분이 이미 하보나의 일곱 순환회로들에서 만났다. 영화롭게 된 필사자들은 또한 하보나 내부 순환회로에 있는 공동 무리단에 속한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과도 긴밀한 접촉을 누려 왔는데, 그곳에서 이 존재들은 많은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다른 순환회로들에서는, 상승하는 순례자들이 미래의 계시되지 않은 임무들을 준비하면서 집단 훈련을 받고 있는 파라다이스-하보나 체계의 수많은 계시되지 않은 거주자들을 만났다.

27:3.4 (301.1) 이 모든 천상의 동행자신분들은 항상 상호적이다. 상승하는 필사자들로서, 너희는 이러한 연속적인 우주 교제들 그리고 점점 더 신성한 연관-동료들의 그러한 수많은 계층들로부터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로부터 상승하는 필사자와 연관을 이루어 오기 위하여 그들 각자를 다르면서도 더 낮게 언제까지나 만드는 너희 자신의 개인성 그리고 체험으로부터의 어떤 것을 이들 형제우애의 존재들 각각에게 심어주기도 한다.

제 4 장. 행위의 지도자

27:4.1 (301.2) 파라다이스 관계들의 윤리에 있어서 이미 충분히 가르쳐졌으므로—무의미한 형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특권계급의 명령도 아닌, 오히려 선천적인 타당성—상승하는 인간들은 초(超)천사 행위 지도자의 조언을 접수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들은 빛과 생명의 중앙 섬에 머무는 높은 존재들의 완전한 행위성의 관습에 관하여 파라다이스 사회의 새 구성원들을 가르친다.

27:4.2 (301.3) 조화는 중앙우주의 기본음이며. 탐지 할 수 있는 질서가 파라다이스를 지배한다. 적절한 행위성은 지식의 길을 거치고 철학을 통과해 자발적 경배의 영적 최고봉에 이르는 진보에 기본요소이다. 신성에 접근하는 데에는 신성한 기법이 있다; 이 기법의 획득은 파라다이스에 순례자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그것의 마음은 하보나의 순환계들에게 알려져 왔지만 시간의 순례자들에 대한 훈련의 마지막 마무리는 그들이 실재적으로 빛의 섬을 달성한 이후(以後)에만 적용될 수 있다.

27:4.3 (301.4) 모든 파라다이스 행위성은 온통 자발적인데, 모든 면에서 자연스럽게 자유롭다. 그러나 영원한 섬 위에서 어떤 것들을 행하는 적절하고도 완전한 방법이 여전히 존재하며, 행위 지도자는 그렇지 않으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혼돈과 불확실성을 순례자들이 피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완전한 편안함을 그들에게 주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문 안에 있는 손님들”의 편에 항상 서 있다. 오직 그러한 장치에 의해서만 끝없는 혼돈을 피할 수 있다; 파라다이스에서는 혼돈이 결코 발생되지 않는다.

27:4.4 (301.5) 이 행위 지도자는 실제로 영화롭게 된 선생과 안내자로서 봉사한다. 그들은 새로운 상황과 생소한 관습의 거의 끝없는 배열에 관하여 새로운 필사 거주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주로 관여한다. 그것을 위한 오랫동안의 준비와 그 이외의 긴 여행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거주 지위를 획득한 그들에게 있어서 파라다이스는 여전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소하고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롭다.

제 5 장. 지식 보호관리자

지식의 초(超)천사 보호관리자들은
파라다이스에서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진바 된 비교적 높은 “살아있는 편지들”이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신성한 기록들, 실제 지식들에 대한 살아있는
책들이다. 너희는 “생명 책”에 담긴 기록에 관하여 들었을
것이다. 지식 보호관리자들은 바로 그러한 살아있는 책들,
신성한 생명과 최극 확실성을 갖는 영원한 서판에 새겨진
완전성에 관한 기록들이다. 그들은 실체로서 살아있는
자동적 도서관들이다. 우주들의 사실들은 이 1차
초(超)천사 안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는데, 이 천사들 안에
실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영원의 진실과 시간의
지능에 대한 이 완전하고도 충분한 저장소들의 마음
안에서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허위가 선천적으로 들어
있는 일은 선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보호관리자들은 영원한 섬의 거주자들을 위한
비공식 교육 과정을 수행하지만, 그들의 주요 기능은
참조와 확인에 관한 것이다. 파라다이스에 머무는 어떤
존재든지 그가 알고 싶어 하는 특별한 사실 또는 진리의
살아있는 저장고를 자기 옆에 뜻대로 둘 수 있다. 그 섬의
가장 북쪽에는 지식의 살아있는 습득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찾은 정보를 간직하고 있는 집단의 지도자들을 가리킬 것이며, 너희가 알고자 하는 바로 그것인 찬란한 존재들이 곧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페이지들에 온통 매달리면서 그로부터 깨우침을 찾아 나서야만 하는 것이 더 이상 없다; 너희는 이제 살아있는 지능과 직접 대면하여 교제한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것의 최종 보호관리자들인 살아있는 존재들로부터 최극의 지식을 획득한다.

27:5.3 (302.2) 너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그것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그 초(超)천사의 위치를 확인할 때, 너희는 모든 우주들의 알려진 사실들 모든 가능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이 지식 보호관리자들은, 지역우주 그리고 초우주의 세라핌천사들과 2품천사들로부터, 하보나에 있는 3차 초(超)천사들에 해당하는 기록자 우두머리들에 이르기까지, 기록하는 천사들의 광대한 연결조직 중 최종적이고도 살아있는 일람표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 지식 축적은 파라다이스의 공식 기록들, 우주적 역사의 누적된 요약과는 다르다.

27:5.4 (302.3) 진리의 지혜는 중앙우주의 신성 안에 기원을 가지지만, 그러나 지식, 체험적 지식은 주로 시간과 공간의 권역들 안에 그 시작을 가지고 있다.-그러므로 천상의 기록자들에 의해 후원되는 기록하는 세라핌천사들 그리고 초(超)천사들의 멀리-퍼지는 초우주 조직들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27:5.5 (302.4) 선천적으로 우주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이 1차 초(超)천사들은 그것의 조직과 분류에도 책임을 진다. 우주들의 우주의 살아있는 참고자료를 스스로 구성함에 있어서, 그들은 지식을 7개의 큰 계층으로 분류해 왔는데, 그 각각은 약 백만 개로 나뉘어 있다. 파라다이스의 거주민들이 이 광대한 지식 비축물을 쉽게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식 보호관리자들의 자발적이고도 현명한 노력 덕분이다. 그 보호관리자들은 또한 중앙우주의 고양된 선생들이기도 한데, 하보나 순환회로들 중 어디서든지 모든 존재들에게 그들의 살아있는 보물을 공짜로 나누어주며;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에서 광대하게 활용된다. 그러나 중앙 그리고 초우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이 도서관은 지역 창조계들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오직

간접적인 것 그리고 반영적으로만 파라다이스 지식의 혜택이 지역우주 안에서 보장된다.

제 6 장. 철학의 대가

27:6.1 (302.5) 경배에 대한 최극의 만족 바로 밑에는 철학의 유쾌함이 있다. 너희는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철학의 채택이 요구되는 1,000여 개의 신비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까지, 그토록 높이 올라가거나 멀리 나아가는 일은 결코 없다.

27:6.2 (302.6) 파라다이스의 철학 스승들은 우주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기분 좋게 추구함에 있어서 원주민이든 상승자이든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의 마음들을 인도하기를 좋아한다. 이 초(超)천사 철학의 스승들은 “하늘의 지혜자들”, 알려지지 않은 것을 정복하고자 노력함에 있어서 지식의 진리와 체험의 사실들을 활용하는 지혜로운 존재들이다. 그들과 함께 하면 지식은 진리에 이르고 체험은 지혜의 수준으로 올라간다. 파라다이스에서는 공간의 상승 개인성들이 존재의 정점을 체험하는데: 그들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진리를 안다; 그들은—진리를 생각하는 것, 철학으로 만들 수 도

있다; 심지어 그들은 궁극자의 개념들을 획득하고자 추구할 수 있고 절대자들의 기법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할 수 있다.

27:6.3 (303.1) 광대한 파라다이스 권역의 가장 남쪽에는 철학의 대가들이 지혜의 70개 기능적 부서들에서 정교한 과정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곳에서 그들은 무한성의 계획들과 목적들에 대해 강연하고, 그들의 지혜에 접근해 온 모든 존재들의 체험들을 조화-협동시키고 그 지식을 조립하기를 추구한다. 그들은 여러 가지 우주 문제에 관하여 고도로 전문화된 태도를 개발해 왔지만, 그들의 최종 결론은 항상 한결같이 일치한다.

27:6.4 (303.2) 이들 파라다이스 철학자들은 가능한 모든 교육 방법으로 가르치는데, 하보나의 비교적 높은 도형 기법 그리고 정보를 교환하는 특정의 파라다이스 방법들을 포함한다. 지식을 전하고 개념들을 알리는 비교적 높은 이 기법들 전체는 심지어 가장 높게 발달된 인간 마음의 이해 능력을 철저히 초월한다. 파라다이스에서의 1시간의 교육은 유란시아의 언어-기억 방법으로 10,000년에 해당될 것이다. 너희는 그러한 통신 기법들을 이해할 수 없으며,

단순히 필사 체험 속에서는 그것들이 비교될만한 어떤 것도 없을 뿐인데, 그것과 비슷한 것이 전혀 없다.

27:6.5 (303.3) 철학의 스승들은 공간의 세계들로부터 상승해 온 그 존재들에게 우주들의 우주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전함에 있어서 최극의 기쁨을 누린다. 그리고 지식의 사실들과 체험의 진리들처럼 그 결론에 있어서 철학이 그렇게 확정적일 수는 결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영원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절대자들의 업적들에 대한 이 1차 초(超)천사 강연에 귀를 기울일 때, 너희는 정복되지 않은 이 질문들에 관한 분명한 그리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27:6.6 (303.4) 파라다이스에 대한 이들 지적 추구는 방송되지 않는다; 완전성의 철학은 직접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그들에게만 가능하다. 회전하는 창조계들은 오직 이 체험을 이미 체험한 자들 그리고 나중에 이 지혜를 공간의 우주들에게로 가지고 나간 그들로부터만 이 가르침들을 배운다.

제 7 장. 경배 지휘-안내자

27:7.1 (303.5)

경배는 창조된 모든 지능체들의 가장 높은 특권인 동시에 첫 번째 의무이다. 경배는 창조자들과 그들의 창조체들의 친밀하고도 개인적인 관계들에 대한 진리와 사실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의식적이고도 즐거운 행위이다. 경배의 본질특성은 창조체 인식의 깊이에 의해 결정된다; 하느님들의 무한 성격에 대한 지식이 진보함에 따라, 경배의 행위는 창조된 존재들에게 알려진 가장 높은 체험적 환희와 가장 절묘한 기쁨의 영광을 그것이 결국에는 달성할 때까지 점점 더 모든 것을-포함하는 것이 된다.

27:7.2 (303.6)

파라다이스 섬에 경배의 특별한 장소가 있지만, 그것은 신성한 예배봉사를 드리는 하나의 거대한 경배회당에 더 가깝다. 경배는 그것의 즐거운 해변으로 기어오른 모든 존재들의 첫 번째 그리고 지배적 열정—하느님의 현존에 도달하고자 그를 충분히 배워온 존재들의 자발적 분출—이다. 하보나를 통하여 안쪽으로 여행하는 동안, 순환계에서 순환계로, 경배는 파라다이스에서 그것의 표현을 지도하고 달리 통제할 필요가 있게 될 때까지 자라 가는 열정이다.

27:7.3 (304.1) 파라다이스에서 즐기는 최극의 찬미와 영적 찬양의 주기적, 자발적, 집단적, 그리고 다른 특별한 분출은 1차 초(超)천사들 중 어떤 특별한 무리단의 지도 아래에서 운영된다. 이 경배 지휘-안내자들의 지도 아래에서, 그러한 경의는 최극의 기쁨이라는 창조체 목표를 성취하며 고상한 자아-표현과 개인적 즐거움의 완전성 절정을 달성한다. 모든 1차 초(超)천사들은 경배 지휘-안내자들이 되기를 갈망 한다; 임무배정 우두머리들이 주기적으로 이 모임을 해산시키지 않았다면, 모든 상승하는 존재들은 경배의 자세로 언제까지나 남아 있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상승하는 존재도 경배에 있어서 그가 충분한 만족감을 달성할 때까지는 영원한 봉사의 임무배정에 들어가기를 결코 요청받지 않는다.

27:7.4 (304.2) 상승하는 창조체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경배 드리면 자아-표현의 이 만족감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동시에 파라다이스 체제의 기본적 행위들에 관심을 둘 수 있을 것인지 가르치는 일이 경배 지휘-안내자들의 임무이다. 경배의 기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능적 깊은 인정과 상승하는 감사의 자기감정에 대해

충만하고도 만족스러운 표현을 하기까지, 파라다이스에 도착한 보통의 필사자에게 수백 년이 소요될 것이다. 경배 지휘-안내자들은 새롭고도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표현의 큰길을 열어주며, 공간이라는 모태와 시간이라는 진통의 이 놀라운 자녀들이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경배에 대한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한다.

27:7.5 (304.3) 자아-표현과 올바르게 알고 있음을 전달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드높여 줄 수 있는, 전체 우주의 모든 존재들의 모든 기술은,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경배에서 그들이 가지는 최고의 수용능력에 이르기 까지 발휘되는 것이다. 경배는 파라다이스 실존에서의 최고의 기쁨이다; 그것은 상쾌하게 하는 파라다이스의 놀이이다. 이 땅위에서 너희 지친 마음을 위하여 놀이가 해주는 것을, 파라다이스에서는 경배가 너희의 완전하게 된 혼에게 해 준다. 파라다이스에서의 경배 양식은 필사자의 이해력을 철저히 초월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영은 여기 유란시아에서도 너희가 올바르게 알 수 있다, 이는 하느님의 영들이 바로 지금도 너희 안에 깃들어 있고, 너희 위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참된 경배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영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파라다이스에서 경배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영원의 섬까지 체험으로 상승하는 눈부신 존재들의 성장하는 지능에서의 영적 감정이 항상-증가하여 넘쳐흐르는 것과 그리고 신성(神性) 인식이 확대되는 것을 감당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그랜한다의 시대 이후로 늘, 파라다이스에서의 경배의 영을 초(超)천사들이 충분하게 받아들여 적응시킬 수 있었던 적이 없다. 그에 대한 준비로서 견주어 볼 때, 경배하고자 하는 것이 언제나 넘치고 있는데, 이는 선천적 완전의 개인성들은, 시간과 공간의 훨씬 낮은 세계의 영적 어두움의 깊은 곳으로부터 천천히 그리고 수고하여 파라다이스 영광을 향해 그들의 상승 길을 이루어 온 존재들이 보이는 영적 감정의 엄청난 반응을 결코 충분하게 깊이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의 천사들과 필사자들이 파라다이스 힘의 현존을 달성할 때, 오랜 세월동안 쌓인 감정들의 표현이 발생하고, 이것은 파라다이스의 천사들이 몹시 놀라는 그리고 파라다이스 신(神)들 안에서 신성한 만족의 최극 기쁨이 산출되는 장관이다.

27:7.7 (304.5) 때로는 파라다이스 전체가 영적 그리고 경배 넘치는 표현의 솟아오르는 물결 속에 휩싸이게 된다. 경배 지휘-안내자들은 종종 신(神) 거주지의 빛이 삼중적으로 동요하는 모습이 나타나기까지 그러한 현상을 통제할 수 없는데, 그것은 파라다이스의 거주자들, 영광스러운 완전한 시민들 그리고 시간의 상승자들의 진지한 경배에 의해 하느님들의 신성한 가슴이 충만하고도 완벽하게 만족됨을 의미한다. 얼마나 놀라운 기법의 위대한 승리인가! 피조 자녀의 지능적 사랑이 창조자 아버지의 무한 사랑에 충만한 만족감을 드리게 되는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 그리고 목적의 열매가 얼마나 놀라운가!

27:7.8 (305.1) 경배의 충만함이라는 최극의 만족감을 달성한 후, 너희는 최종의 무리단으로 들어가도록 분별화된다. 그 상승 생애는 거의 완결되었고, 일곱 번째 축전이 준비된다. 첫 번째 축전은 생존되는 목적이 봉인될 때 생각 조절자와의 필사자 계약이라는 표를 남겼다; 두 번째는 모론시아 삶 속에서 깨어났을 때이다; 세 번째는 생각 조절자와의 결합이었다; 네 번째는 하보나에서 깨어났을 때였다; 다섯 번째는 우주 아버지에 대한 발견을 축하할 때였다; 그리고 여섯 번째 축전은 시간의 마지막 통과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파라다이스 행사가 있을 때였다. 일곱 번째 축전은 영원 봉사의 시작과 필사자 최종자 무리단에의 입장이라는 표를 남긴다. 최종자에 의한 영 실현의 일곱 번째 단계 달성은 아마도 영원의 축전들 중에서 첫 번째의 축하임을 널리 표시할 것이다.

27:7.9 (305.2) 그리하여 파라다이스 초(超)천사들, 너희가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 안으로 소집되고 영원의 삼위일체 서약을 하면서 경배 지휘-안내자들이 최종적으로 너희에게 작별을 고할 때까지, 하나의 우주 등급으로서 너희가 기원된 세계로부터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했던, 사명활동하는 전체 천사들 중 가장 높은 계층에 관한 이야기가 끝난다.

27:7.10 (305.3)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끝없는 봉사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최종자는 궁극자 하느님의 도전과 마주한다.

27:7.11 (305.4) [유버사로부터 온 지혜의 완전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28 편 초우주의 사명활동 영

28:0.1 (306.1) 초(超)천사들이 중앙우주의 천사 무리이고 지역우주들의 세라핌천사들인 것처럼, 2품천사들은 초우주의 사명활동 영이다. 그러나 신성의 정도에서 그리고 최극위의 잠재성에서, 이들 반영 영의 자녀들은 세라핌천사보다는 초(超)천사와 훨씬 더 비슷하다. 그들은 초(超)창조들 안에서 홀로 봉사하지 않으며, 각각 수많은 그리고 흥미를 자아내고 있는 모두가 계시되지 않은 그들 연관-동료들이 후원하는 활동행위들이다.

28:0.2 (306.2) 이 글들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초우주들의 사명활동 영들은 다음과 같은 세 계층들을 포용 한다:

28:0.3 (306.3) 1. 2품천사.

28:0.4 (306.4) 2. 3품천사.

28:0.5 (306.5) 3. 전(全)천사.

28:0.6 (306.6) 마지막 두 계층들은 필사자 진보의 상승 기획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2품천사들에 대해 더욱 확대된 고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논의될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3품천사나 전(全)천사는 둘 모두

초우주들의 사명활동 영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들 권역 안에서 영 사명활동자들로 봉사하고 있다.

제 1 장. 3품천사

28:1.1 (306.4) 이 높은 천사들은 초우주 본부에 기록되어 있고, 한편 지역 창조계들 안에서 봉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볼 때 그들은 지역우주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이들 초우주 수도의 거주민들이다. 3품천사들은 무한한 영의 자녀들이며 1,000명의 집단으로 파라다이스에서 개인성구현 된다. 신성한 기원성과 최극-인접 다재다능성을 갖는 이 뛰어난 존재들은 하느님의 창조자 아들들에게 수여된 무한한 영의 선물이다.

28:1.2 (306.5) 미가엘 아들이 파라다이스의 어버이 체제로부터 분리되고 공간의 우주 모험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무한한 영은 1,000명에 이르는 이 동행자 영들을 낳는다. 그리고 그가 우주를 조직하는 모험여행을 시작할 때 이 장엄한 3품천사들이 이 창조자 아들을 따라간다.

28:1.3 (306.6) 우주 건축의 초기 시간에 두루, 1,000명의 이 3품천사들은 창조자 아들의 유일한 개인적 참모진이다. 그들은 우주를 조립하고 천문상의 변형이 일어나는 이

활발한 시대 동안 아들 보좌관들로서 막강한 체험을 획득한다. 그들은 지역우주의 첫 태생인 빛나는 새벽별의 개인성구현이 일어나는 날까지 창조자 아들 곁에서 봉사한다. 그 결과로 3품천사들의 공식 사임이 제출되고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원주민 천사 창조체의 첫 계층들이 출현함에 따라, 그들은 지역우주에서의 활동적 봉사로부터 물러나고, 그 이전에 배정되었던 창조자 아들과 관련된 초우주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 사이를 연락하는 사명활동자들이 된다.

제 2 장. 전(全)천사

28:2.1 (307.1) 전천사들은 일곱 최극집행자들과 연락하여 무한한 영에 의해 창조되며, 그들은 동일한 이 최극집행자들의 독점적 하인들 그리고 메신저들이다. 전천사들은 대우주 임무배정에 속하며, 오르본톤에서는 그들의 무리단이 유버사의 북쪽 부분에 본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특별 우대거류민단으로서 거주한다. 그들은 유버사에 등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리-행정에도 배속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필사자 진보의 상승 기획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28:2.2 (307.2) 전(全)천사들은 일곱 최극집행자들의 관점에서, 행정-관리적 조화-협동의 이익을 위해, 초우주들을 감독하는 일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다. 유버사에 있는 우리의 전천사 거류민단은, 파라다이스 위성들 중 외부 고리에 있는 7번 공동 집행 구체에 위치한, 오직 오르본톤의 최극집행자로부터 지침을 받아들이고 그에게만 보고를 한다.

제 3 장. 2품천사

28:3.1 (307.3) 2품천사 무리는 각 초우주의 본부에 배정된 일곱 반영 영들에 의해 생겨난다. 한 집단이 일곱으로 이루어진 이들 천사들의 창조와 관련하여, 분명한 파라다이스-반응적 기법이 있다. 각 일곱들에는 항상 한 명의 1차 존재, 3명의 2차 존재, 그리고 3명의 3차 2품천사들이 있다; 그들은 항상 정확한 비율로 개인성구현한다. 그렇게 2품천사들로 이루어진 일곱들이 창조될 때마다, 1차적인 한 명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봉사에 배정된다. 2차적인 3명의 천사들은 초우주 정부들에 있는 파라다이스-지원 행정-관리자들로 이루어진 세 집단들과 연관된다; 이들은 신성한 조연자들, 지혜의 완전자들, 그리고 우주 검열자들이다. 3차적인 3명의 천사들은 초우주

통치자들에게 배정된다; 이들은 막강한 메신저들, 높은 권한자들, 그리고 이름-번호 없는 자들의 상승한 삼위일체화 연관-동료들이다.

28:3.2 (307.4) 초우주들의 이들 2품천사들은 반영 영들의 자손들이며, 그러므로 반영성은 그들의 본성 안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다. 그들은 셋째근원이며 중심과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들 안에 기원을 가지는 모든 창조체의 개개의 위상 모든 것에 반영적으로 응답을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첫째근원이며 중심 안에 단독으로 기원을 가지는 존재들과 실존개체들에는, 개인적이나 또는 다른 어떤 것이나, 직접적으로 반영을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무한한 영의 우주 지능 순환회로들의 실재성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비록 다른 어떤 증명이 우리에게 없더라도, 2품천사의 반영 행위들은 공동 행위자의 무한 마음의 우주적 현존에 대한 실체성을 실증하기에 아주 충분할 것이다.

제 4 장. 1차 2품천사

28:4.1 (307.5)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게 배정된, 1차 2품천사들은 이들 삼원적 통치자들에 대한 봉사에 있어서 살아있는 거울들이다. 초우주의 질서 속에서, 그것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살아있는 거울로 바뀔 수 있고 그리하여 수천 또는 수십만 광년 거리에 있는 다른 응답들을 듣고 이 모든 것을 즉시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라. 기록들은 우주들의 행위에 본질적이고, 방송들은 사용할 수 있고, 단독 그리고 다른 메신저들의 활동은 매우 도움이 되지만,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과 파라다이스 사이—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있는 중도적인 그들의 위치로부터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양쪽 길을 즉시 볼 수 있고, 길들을 들을 수 있으며, 양쪽 길을 알 수 있다.

28:4.2 (308.1) 이 능력—말하자면, 만물을 듣고 보는 능력—은 오직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서만 그리고 오직 그들 각각의 본부 세계에서만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거기에서 조차 한계에 부딪친다: 유버사로부터, 그러한 통신은 오르본톤의 세계와 우주들에 제한되며 그리고 동일한 이 반영성 기법이, 초우주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각각을 중앙우주 그리고 파라다이스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게 한다. 일곱

초우주들은, 개별적으로 격리되어 있더라도, 이렇게 위의 권한을 완전하게 반영하고 전적으로 공감할 뿐만 아니라 아래의 필요를 완전하게 정통하고 있다.

28:4.3 (308.2) 1차 2품천사들은 선천적으로 가진 본성에 의해 일곱 가지 유형의 봉사들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계층의 첫 번째 계열들이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게 영의 마음을 해석하도록 선천적으로 자질로서 부여받아야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

28:4.4 (308.3) 1. 공동 행위자의 음성. 각 초우주마다 첫 번째 1차 2품천사 그리고 뒤이어 창조되는 그 계층에서의 매 일곱 번째 존재는 초우주 정부에 있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 와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들에게 무한한 영의 마음을 납득하고 해석하는 적응성에서의 높은 계층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 초우주들의 본부에서 큰 가치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역 창조계들이 그들의 신성한 사명활동자들과 함께 있는 것과는 달리, 초정부의 자리는 무한한 영의 특별화된 개인성구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2품천사 음성들은 그러한 본부 구체에서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개인 대표자들이 되는 것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다가온다. 참으로, 일곱 반영 영들이 거기에 있지만, 2품천사 무리의 이들 어머니들은 공동 행위자보다는 일곱 주(主) 영들에 대한 것에 더욱 참되게 그리고 자동으로 반영적이다.

28:4.5 (308.4) 2. 일곱 주(主) 영의 음성. 두 번째 1차 2품천사들과 뒤이어 창조되는 매 일곱 번째마다의 한 명은 일곱 주(主) 영들의 집단적인 본성들과 반응들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비록 임무가 배정된 일곱 반영 영들 중 어느 하나가 각 주(主) 영을 초우주 수도에서 이미 대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대변은 개별적인 것이고 집합적인 것이 아니다. 집단적으로 볼 때, 그들은 오직 반영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主) 영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 앞에서 그들을 대표하기에 매우 충분한, 1차 2품천사들 중 두 번째 계열인, 매우 개인적인 이 천사들의 봉사를 환영한다.

28:4.6 (308.5) 3. 창조자 아들의 음성. 무한한 영은 미가엘 계층에 해당하는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창조 그리고 훈련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왜냐하면 제3의 1차 2품천사들과 뒤이은 각 일곱 번째 계열이 이

창조자 아들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뛰어난 선물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고려되는 어떤 문제에 관하여 네바돈의 미가엘의 태도를 알고 싶어—실제로 알고자—하였다면, 그들은 그를 우주의 방침에 따라 호출할 필요가 없으며; 그들은 오직 네바돈 음성들의 우두머리를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는 요청에 따라, 기록하는 미가엘 2품천사들을 출석시킬 것이다; 바로 그 때 거기에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네바돈의 주(主)아들의 음성을 감지(感知)할 것이다.

28:4.7 (309.1) 다른 어떤 아들관계의 계층도 그렇게 “반영적”일 수 없고, 어떤 다른 천사 계층도 그렇게 기능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충만하게 납득하지 못하며, 나는 창조자 아들들 자신이 그것을 충분히 납득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의심이 간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활동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고, 그것이 반드시 만족스럽게 일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유버사의 전체 역사 속에서 2품천사 음성들이 그들의 발표에 있어서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28:4.8 (309.2) 여기에서 너희는 신성이, 시간의 공간을 둘러싸고 그리고 공간의 시간을 통달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의, 그 어떤 것을 비로소 보기 시작한다. 너희는 여기에서 영원 주기의 기법에서의 힐끔보기, 곧 공간의 어려운 장애들을 통달하고 있는 그들의 과업 속에서 시간의 자녀를 도우려고 이제 잠시 갈라진, 영원 주기의 순식간에 지나가는 힐끔보기를, 맨 처음 얻고 있다. 그리고 이들 현상은 반영 영들의 확립된 우주 기법에 추가되는 것이다

28:4.9 (309.3) 비록 위로는 주(主) 영들의 그리고 아래로는 창조자 아들들의 개인적 현존이 박탈되어진 것이 외견상으로는 명백하지만,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반영적 완전성과 궁극적 정확성의 조화우주 기능구조에 동조되는 살아있는 존재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기능 구조로 인하여 모든 저들 드높여진 존재들, 개인적 현존이 거부된 그들 모두의 반영적 현존을 누릴 수 있다. 이들 수단 그리고 너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것들에 의해 그리고 그것에 두루, 하느님은 초우주들의 본부에 잠재적으로 현존한다.

28:4.10 (309.4)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위로부터는 영 음성-
번쩍임들을 그리고 아래로부터는 미가엘 음성-
번쩍임들을 등식화 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추론한다. 그래서 그들은 지역우주들의 행정-관리적
관련사들에 관한 아버지의 뜻을 추정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서로 다른 두개의
지식으로부터 하느님들 중 한 분의 뜻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세 명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함께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명으로는 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설혹 다른 이유들이 없었다 하더라도,
초우주들은 한 명이나 두 명이 아니라 항상 세 명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들에 의해 통할되고 있다.

28:4.11 (309.5)

4. 천사 무리의 음성. 네 번째 1차 2품천사들과 매
일곱 번째 계열은, 위로는 초(超)천사들을 그리고
아래로는 세라핌천사들을 포함하여, 모든 계층의
천사들의 정서에 특정적으로 응답하는 천사들이
판명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명령하는 또는 감독하는
천사의 태도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그 어떠한
협의회에서의 숙고에 관한 것에도 즉각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유란시아의 세라핌천사들의 우두머리에게 반영적

이동에서의 현상들에 대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유버사로부터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는 날이, 너희 세계에서는 결코 단 하루도 없다, 그러나 단독 메신저에 의해 미리 경고를 받지 않는다면, 그녀는 무엇이 추구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보장되는 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들 시간의 사명활동 영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들의 관심과 조언을 불러일으키는 끝없이 이어지는 사실들과 관련되는, 이러한 무의식적이고도 확실한 종류의, 따라서 편견 없는 증언들을 공급하고 있다.

28:4.12 (309.6) 5. 방송 접수자.. 오직 이 1차 2품천사들에 의해서만 받아들여지는 특별한 등급의 방송 메시지들이 있다. 그들이 유버사의 정규 방송이 아닌 반면, 그들은 우주 통신의 확립된 순환회로들 위로 다가오는 일정한 실재적 메시지들을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반영적 통찰력에 동조시킬 목적으로 반영적 음성들의 천사들과 연락하면서 활동한다. 방송 접수자.들은 다섯 번째 계열, 창조될 다섯 번째 1차 2품천사들 그리고 그 이후 매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존재들이다.

28:4.13 (310.1)

6. 운송개인성. 이들은 초우주들의 본부 세계들로부터 하보나의 외부 순환계를 향해 시간의 순례자들을 옮기는 2품천사들이다. 그들은 초우주들의 수송 무리단인데, 파라다이스를 향해 안쪽으로 그리고 그들 각각의 구역들에 해당하는 세계들을 향해 바깥쪽으로 활동한다. 이 무리단은 여섯 번째 1차 2품천사들 그리고 그 후에 창조되는 매 일곱 번째 존재들로 구성된다.

28:4.14 (310.2)

7. 예비무리단. 매우 큰 집단의 2품천사들, 일곱 번째 1차 계열들이, 분류되지 않은 임무들과 영역들의 응급 임무 배정을 위해 예비자들 안에 수용되어 있다.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다양한 연관-동료들 중 어떤 자격으로든지 제법 잘 기능할 수 있지만, 그러한 특별한 업무는 오직 긴급 사태에서만 수행된다. 그들의 평상시 업무는 특별한 임무가 배정된 천사들의 범위 안에 소속되지 않는 초우주의 일반화 된 그 임무들을 이행하는 것이다.

제 5 장. 2차 2품천사

28:5.1 (310.3) 2차 계층의 2품천사들은 그들의 1차 동료들에 못지않게 반영적이다. 1차적, 2차적, 그리고 3차적인 것으로 분류되는 일은 2품천사들의 경우 지위 또는 기능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과정의 순서를 나타낸다. 그들의 활동에 있어서 세 집단들 모두 동일한 본질특성들을 나타낸다.

28:5.2 (310.4) 일곱 반영적 유형들을 갖는 2차 2품천사들은 다음과 같이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조화-협동 삼위일체-기원 연관-동료들에 대한 봉사에 배정 된다:

28:5.3 (310.5) 지혜의 완전자들에 대해—지혜의 음성, 철학의 혼들, 그리고 혼의 연합.

28:5.4 (310.6) 신성한 조연자들에 대해—조연의 가슴, 실존의 기쁨, 그리고 봉사의 만족.

28:5.5 (310.7) 우주 검열자들에 대해—영 식별자.

28:5.6 (310.8) 이 집단은 1차 계층과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창조된다; 첫-태생은 지혜의 음성이고, 그 이후 일곱 번째가 비슷하며, 이 반영적 천사들 중 다른 여섯 유형들도 그러하다.

28:5.7 (310.9)

1. 지혜의 음성. 이 2품천사들 중 특정인들은 파라다이스의 살아있는 도서관들, 1차 초(超)천사에 속하는 지식 보호관리자들과 영속적인 연락을 이룩한다. 특별한 반영적 봉사에 있어서 지혜의 음성은 우주들의 우주의 조화-협동된 지혜에 대한 살아있고 현재이며 충만하고 전적으로 신뢰할만한 집결 그리고 초점화구현이다. 초우주들의 주(主) 순환회로들을 도는 거의 무한한 양의 정보에 대하여, 훌륭한 이들 존재들은 지혜의 본질을 분리시키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들의 상급자들인, 지혜의 완전자들에게 마음 작용의 이 보물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다. 그리고 그들은 지혜의 완전자들이 이 지혜의 실재적이고 기원적인 표현들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 대한 음성을 주었던, 높거나 낮은 기원을 가진, 바로 그 존재들을 반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한다.

28:5.8 (310.10)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유버사에서는, 초우주 정부의 복잡한 관련사들이 난처한 상황에서 지혜의 결정에 도달할 필요가 있게 되면, 완전의 지혜와 실천성의 지혜 둘 모두가 반드시 출현하게 되면, 지혜의 완전자들은 한 조의 지혜의

음성을 호출하며, 그들 계층의 더할 나위 없는 기술에 의해 우주들의 우주의 마음속에 들어온 그리고 순환하는 지혜에 대한 이 살아있는 접수자.들을 너무나도 조화시키고 방향을 잡게 하기 때문에, 위로는 우주로부터의 신성의 지혜의 흐름과 아래로는 우주들의 높은 마음으로부터의 실용성의 지혜의 흐름이 이제 이 2품천사 음성들로부터 일어난다.

28:5.9 (311.1) 만일 이 두 지혜 해석의 조화에 관하여 혼돈이 일어나게 되면, 즉각적인 상소가 신성한 조연자들에게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절차들의 적절한 혼합에 대한 경우처럼 즉시 통치한다. 만일 반역이 잘 일어나는 영역으로부터 다가오는 어떤 것의 확실성에 대한 경우처럼 어떤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검열자들에게 상소가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그들의 영 식별자들과 함께 “영의 방법”이 그 충고자를 행동하게 만든 그것에 대해서와 같이 즉각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 시대들의 지혜와 순간의 지성은, 그들이 주시하는 앞에 열려진 책처럼, 그렇게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 영원히 함께 있다.

28:5.10 (311.2) 너희는 이 모든 것이 초우주 정부들의 경영을 책임지는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만 어렵פות이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이 활동행위들의 광대함과 이해력은 유한 개념을 훨씬 초월한다. 내가 반복하였듯이, 너희가 유버사에서 지혜의 성전의 특별한 접수실에 서서 이 모든 것이 실재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때, 너희는 우주들의 행성간 통신의, 복잡성의 완전성에 의해 그리고 작업의 정확성에 의해 감동될 것이다. 너희는 신성한 지혜와 하느님들의 선함에 경의를 표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그러한 놀라운 기법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그리고 이것들은 내가 그것들을 설명해 온 것과 똑같이 실재적으로 일어난다.

28:5.11 (311.3) 2. 철학의 혼. 이 경이로운 선생들 역시 지혜의 완전자들에게 배정되어 있으며, 그래서 별다르게 방향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들은 파라다이스에서 철학의 주(主)들과 초점적 동조를 이루면서 남아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너희의 유한한 그리고 물질적인 자신의 겉모습을 바라보는 대신에, 거대한 살아있는 거울 앞으로 걸어 올라가, 신성의 지혜와 파라다이스의 철학의 반영을 인식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만일 이 완전의 철학을

“육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된다면, 그리하여 그것을 희석시켜 비교적 낮은 세계들의 낮은 초라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실천적으로 적용되도록, 그리고 그들에 의해 동화되도록 하려면, 이들 살아있는 거울들은 또 다른 세계 혹은 우주의 표준과 필요를 반영하려고, 그들의 얼굴을 아래쪽으로 돌리기만 하면 된다.

28:5.12 (311.4) 바로 이 기법들에 의해, 지혜의 완전자들은 고려되는 민족들 그리고 세계들의 실제적 필요와 실재적 지위에 대한 결정들과 충고들을 적응시키며, 그들은 항상 신성한 조연자들과 우주 검열자들과 협조하여 활동한다. 그러나 이들 활동행위의 숭고한 충만성은 나의 이해력까지도 훨씬 초월한다.

28:5.13 (311.5) 3. 혼들의 연합. 지혜의 완전자들에게 배정된 삼원적 참모진을 완성하는 것은 윤리적 관계들에 대한 이상들 그리고 지위들의 이 반영자들이다. 체험과 융통성의 더할 나위 없는 지혜의 훈련을 요구하는 우주 안의 모든 문제들 중에, 어느 것도 지능 존재들의 관계들 그리고 관계적-연합들로부터 발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상업과 무역, 친구관계와 결혼의 인간적

관계적-연합의 경우, 또는 천사 무리와 연락하는 경우 중 어느 경우든지, 화해자들의 눈길을 끌기에는 너무 하찮은 일이지만, 만일 커지고 계속되도록 내버려둔다면 우주의 순조로운 작용을 망칠 정도로 충분히 염증을 일으키고 어지럽게 만드는 작은 마찰들, 사소한 오해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므로 지혜의 완전자들은 그들의 계층의 현명한 체험을 전체 초우주를 위한 "화해의 기름"이 될 수 있게 만든다. 이 모든 활동에 있어서, 초우주들의 이 현명한 사람들은 그들의 반영적 연관-동료들, 혼의 연합에 의해 훌륭한 후원을 받는데, 그들은 우주의 상태에 관한 현재적 정보를 가능하게 만들고 이 난처한 문제들에 대한 최상의 조절이 되는 파라다이스 이상을 동시에 묘사한다. 다른 곳에서 특별하게 지도되지 않을 때에는, 이 2품천사들이 파라다이스에 있는 윤리 통역자들과 반영적 연락을 이루면서 남아 있다.

28:5.14 (312.1) 오르본톤 전체의 협동-작업을 육성시키고 증진시키는 것은 이 천사들이다. 너희의 필사자 생애 동안 배우게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은 협동작업이다. 완전의 구체들은 다른 존재들과 일하는 이 기술에 통달해 온 자들에 의해 길들여진다. 우주 안에서 홀로 일하는 일꾼이

할 임무는 거의 없다. 너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희 동료들과의 연관이 일시적으로 없을 때는 너희는 더욱 고독해질 것이다.

28:5.15 (312.2) 4. 조언의 가슴. 이것은 신성한 조언자들의 감독 아래에 놓이게 되는 이 반영적 천재들 중 첫 번째 집단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2품천사들은 공간의 사실들에 점유되어 있는데, 시간의 순환회로들 안에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위해 선택된다. 특별히 그들은 초(超)천사 정보 조화-협동자들을 반영하지만, 높은 계급이든지 낮은 계급이든지 모든 존재들의 조언을 선택적으로 반영하기도 한다. 신성한 조언자들이 중요한 충고 또는 결정에 소집될 때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조언의 가슴의 합주곡을 요청하며, 이윽고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데 이것은 그 초우주 전체에서 가장 유능한 마음들의 조화-협동된 지혜와 조언을 실재적으로 종합한 것이며, 그것은 모두 하보나 그리고 심지어는 파라다이스에까지 속한 높은 마음들의 조언에 비추어서 검열되고 고쳐진 것이다.

28:5.16 (312.3) 5. 실존의 기쁨. 본성적으로 이 존재들은 위로는 초(超)천사의 조화감독자들에게 그리고 아래로는 일정한

세라핌천사들에게 반영적으로 동조되어 있지만, 이 흥미로운 집단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들의 주요 활동들은 다양한 계층의 천사 무리들과 비교적 낮은 의지적 창조체들 가운데에 기쁨의 반응들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향된다. 신성한 조연자들은, 그들이 배정된 그들에 대하여, 특별한 기쁨 습득을 위해 그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다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복귀 지도자들과의 협동에 있어서, 그들은 기쁨 집배소로서 기능하는데, 유머 감각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영역들의 즐거움 반응들을 증진시키고자, 필사자들과 천사들 사이에서 초(超)유머를 발전시키고자 애쓴다. 그들은 모든 가외(加外)적 영향들과는 관계없이, 자유의지 실존 안에 선천적으로 기쁨이 들어 있음을 실증하고자 노력한다; 원시인들의 마음속에 이 진리를 주입시킴에 있어서 그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옳다. 비교적 높은 영 개인성들과 천사들은 이 교육적 수고에 더 빨리 응답한다.

28:5.17 (312.4) 6. 봉사의 만족. 이 천사들은 파라다이스에서의 행위의 지도자들의 태도를 높이 반영하며, 실존의

기쁨들이 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봉사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그것으로부터 기인되는 만족감들을 증강시키고자 분투한다. 그들은 사심-없는 봉사, 진리의 왕국의 확장을 위한 봉사 안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는 연기된 보상들을 조명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 왔다.

28:5.18 (312.5) 신성한 조연자들은, 이 계층이 배정된 그들에게, 영적 봉사로부터 기인되는 은혜를 한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로 반영하기 위해 그들을 활용한다. 그리고 평범한 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용기를 주기에 가장 좋은 자들의 업적을 활용함으로써, 이 2품천사들은 초우주 안에서 헌신된 봉사의 본질특성에 막대한 기여를 한다. 어느 세계라도 다른 세계, 특별히 가장 우수한 세계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유포시킴으로써 형제우애에서의 경쟁적인 영이 효력 있게 사용된다. 상쾌하고도 건전한 경쟁이 심지어는 세라핌천사 무리 중에서도 권장된다.

28:5.19 (313.1) 7. 영 식별자. 두 번째 하보나 순환계의 조연자와 충고자와 이 반영적 천사들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연락이 존재한다. 그들은 우주 검열자들에게 배속된 유일한

2품천사들이지만, 그들의 전체 동료들 중에서 가장 독특하게 전문화되어 있을 것이다. 정보의 근원 또는 통로와는 상관없이, 손에 쥔 증거가 아무리 빈약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반영적 정밀조사에 의존될 때에는, 이 식별자들이 참된 동기와 실재적인 목적 그리고 그것이 기원된 실제 본질에 관하여 즉시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나는 이 천사들의 장엄한 기능에 감탄하는데, 그들은 초점이 맞추어진 어떤 폭로에 관여된 모든 개별존재의 실재적인 도덕적 그리고 영적 성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28:5.20 (313.2) 영 식별자들은 선천적인 “영적 통찰력”의 덕분으로 이 까다로운 봉사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내가 만일 인간 마음에게 생각을 옮겨주려고 애쓰면서 어떤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해도 된다면, 그것은 이들 반영적인 천사들이 것처럼 직관적으로, 선천적으로, 그리고 어김없이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주 검열자들이 이들 발표를 볼 때, 그들은 반영된 개별존재의 적나라한 혼과 얼굴을 마주할 것이다; 묘사에 대한 바로 이 확실성과 완전성은 검열자들이 정의로운 심판관들로서 어떻게 항상 그토록 공정하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식별자들은 유버사로부터 떨어진 어떤 임무의

경우든지 검열자들을 항상 따라가며, 그들은 그들의 유버사 본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주들 안에서도 똑같이 효력이 있다.

28:5.21 (313.3) 나는 영 세계의 이들 모든 활동행위들이 실제적이라는 것, 우주적 권역들의 변경할 수 없는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리고 확립된 관례에 따라, 활동행위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장한다. 새롭게 창조된 모든 계층의 존재들은, 생명의 입김을 받는 즉시, 순간적으로 높은 곳에 반영되어진다; 창조체 본성과 잠재에 대한 살아있는 어떤 묘사가 초우주 본부에 섬광처럼 전해진다. 그래서 검열자들은, 식별자들에 의해서, 공간의 세계들에서 “어떤 영이” 지금까지 태어났는지를 충분히 인지한다.

28:5.22 (313.4) 필사 사람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즉: 구원자별의 어머니 영은 너희를 충분히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너희 세계에 있는 성령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그 신성한 영이 너희에 대해 아는 것은 무엇이든지 2품천사 식별자들이 너희에 대한 영의 지식에 관하여 영과 함께 숙고할 때마다 언제든지 즉각 유효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아버지 단편들의 지식과 계획들이 반영적이지 않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식별자들은 조절자들의 현존을 반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만(그리고 검열자들은 그들을 신성이라고 선언함), 그들은 신비 감시자들의 열심의 내용을 해독할 수 없다.

제 6 장. 3차 2품천사

28:6.1 (313.5) 그들의 동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천사들이 연속적으로 그리고 일곱 반영적 유형들로 창조되지만, 이 유형들은 초우주 행정-관리자의 분리된 봉사들에 개별적으로 배정되지는 않는다. 3차 2품천사들 전체는 삼위일체화 달성의 아들들에게 집단적으로 배정되고, 상승하는 이 아들들은 그들을 교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막강한 메신저들은 3차 유형들 중 어떤 것이든지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며, 그들의 조화-협동자들인 높은 권한자들과 이름-번호 없는 자들도 그렇게 한다. 3차 2품천사들의 일곱 가지 유형들은 다음과 같다:

28:6.2 (314.1) 1. 기원의 의의(意義). 초우주 정부의 상승한 삼위일체화 아들들에게는 어떤 개별 종족 또는 세계든지

그 기원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결과들을 다루는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 기원의 의의(意義)는 영역의 살아있는 창조체들의 조화우주 진보를 위한 우리들의 계획 전체 안에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이다. 모든 관계들과 윤리의 적용은 기원되는 근본적 사실들로부터 나온다. 기원은 하느님들의 상호 관계적 반응의 기초이다. 공동 행위자는 항상 “그가 어떤 방법으로 태어났는지를 주목한다.”

28:6.3 (314.2) 비교적 높은 하강하는 존재들에 있어서, 기원은 단순히 확인되어야 할 사실이다; 그러나 천사들 중 비교적 낮은 계층들을 포함하여, 상승하는 존재들의 경우에는, 우주적 관련사들이 중요하여—따라서 중앙 우주 안에 있거나 초우주의 전체 영역에 두루 있거나 그 어떤 존재의 탄생에 관하여 요구되는 그 어떤 것도 즉시 묘사할 수 있는 반영하는 2품천사들의 계열을 우리의 활용에 배치할만한 가치가 있는—그러한 우주적 관련사들의 변곡점과 동등하게 치명적인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원의 본성과 정황은 항상 그렇게 분명한 것은 아니다.

28:6.4 (314.3) 기원의 의의(意義)들은 일곱 초우주들에 거주하는 광대한 존재들의 무리—사람들, 천사들, 그리고 다른

존재들—의 살아있는 준비된-참고 계보들이다. 그들은
그들 각각의 초우주들에 속한 어떤 세계든지 그 위에 있는
모든 개별존재의 현재적 실재 지위와 조상 요소들에 대한
최신의, 충분한, 그리고 믿을만한 평가서를 그들의
상급자들에게 제공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소유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그들의 계산은 항상 분(分) 단위까지
되어 있다.

28:6.5 (314.4) 2. 자비의 기억. 이들은, 기원의 의의(意義)들에
대한 묘사에 의해 계시(啓示)된 바와 같이, 영역들의
지위에 정의로움의 공의(公義)를 적응시키는 임무에
있어서 무한한 영의 대행기관들의 섬세한 보살핌에 의해
개별존재들과 종족들에게 확장되어 온 실재적이고
충만하며 충분한, 살아있는 기록들이다. 자비의 기억은
하느님의 아들들에 의해 확립된 구원 준비에서의 그들
자산에 대응하여 내려놓아야 할 자비의 자녀들의 도덕적
채무—그들의 영적 부채들—를 드러낸다. 아버지의 실존-
이전(以前) 자비를 계시함에 있어서, 하느님의 아들들은
전체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신용을 확정한다.
그리고 나서, 기원의 의의(意義)들의 조사에 따라,
자비에서의 신용, 신성한 시민권을 실제로 바라는 각각의

혼의 생존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자비에서의 신용 그리고 충분한 비율의 신용이 각 이성적 창조체의 생존을 위해 확립된다.

28:6.6 (314.5) 자비의 기억은 살아있는 시산표(試算表), 영역들의 초자연적 무리들에 대한 너희 계정의 현재적 대차대조표이다. 이들은 끝나지 않은 삶에 대한 각 개별존재의 권리가 판결을 받게 될 때 유버사의 법정의 증언으로 읽혀지는 자비 직무의 살아있는 기록들인데, 그 때에는 “보좌들이 세워지고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권좌에 앉는다. 유버사의 방송이 반포되고 그들 앞으로부터 나아오며; 수 천 명이 그들에게 시중들고, 수 천 명의 수 천 배가 넘는 많은 숫자가 그들 앞에 선다. 심판이 내려지고, 책들이 열려 있다.” 그리고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열려 있는 책들은 초우주들의 3차 2품천사들의 살아있는 기록들이다. 만일에 그것들이 요구된다면, 자비의 기억들의 증언을 정식으로 확인하기 위해 공식 기록들이 정리 보관된다.

28:6.7 (314.6) 자비의 기억은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참을성 많은 개인성들의 사랑스러운 사명활동에 있어서 하느님의

아들들에 의해 확립된 구원하는 신용이 충분히 그리고 신실하게 지불되어 왔음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러나 자비가 다 소모되면, 그 "기억"이 그것의 고갈을 그로서 증언하면, 공의(公義)가 널리 퍼져 지배하고 정의(正義)가 선포된다. 자비는 그것을 경멸하는 자들에게 끼어들어 떠밀어주지는 않기 때문에; 자비가 시간의 끈질긴 반역자들의 발길아래에서 짓밟혀야하는 선물이 아니다. 자비는 그와 같이 귀중하고 값지게 증여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개별존재가 끌어내어 사용하는 신용들은, 너희가 만일 목적에서의 진지함과 가슴에서의 정직함이 있다면, 항상 그 예비된 비축량을 고갈시키는 너희 능력을 훨씬 초과한다.

28:6.8 (315.1) 자비 반영자들은, 그들의 3차 연관-동료들과 함께, 상승하는 창조체들에 대한 훈련을 포함하여, 수많은 초우주 사명활동에 참여한다. 많은 다른 것들 중에서 기원의 의의(意義)들은 이 상승자들에게 영 윤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가르치고, 그러한 훈련 이후에는, 자비의 기억들이 어떻게 정말로 자비로울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친다. 자비라는 봉사의 영 기법들이 너희 개념을 초월하는 것이긴 하지만, 너희는 자비가 성장의

본질특성임을 이제라도 납득해야만 할 것이다. 너희는 처음에는 바르고, 다음에는 공평하고, 그 다음에는 참고, 그 다음에는 친절하게 되면서 그로서 개인성 만족이라는 커다란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실현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일 너희가 그것을 택하여 너희 가슴속에 간직한다면, 그 기초 위에서, 너희는 그 다음 걸음을 내딛어 정말로 자비를 보일 수 있다; 너희는 스스로 그리고 저절로 자비를 보여줄 수는 없다. 이 단계들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는 참된 자비가 존재할 수 없다. 후원이나 검양 또는 자선—심지어는 연민의 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자비는 아니다. 참된 자비는 집단에 대한 납득, 상호적 존중, 형제우애에서의 동료관계, 영적 교제, 그리고 신성한 조화에 대하여 선행하는 이들 보조들이 아름다운 절정을 이룸으로서 오직 나올 수 있다.

28:6.9 (315.2) 3. 시간의 의미. 시간은 모든 의지적 창조체들의 하나의 우주 자질이다; 그것은 모든 지능 존재들에게 위임된 "하나의 재능"이다. 너희 모두는 너희 생존을 보증할만한 시간을 갖고 있다; 시간은 그것이 무시됨으로써 문힐 때에만, 너희 혼의 생존으로 보증하도록 그것을 활용하기에 실패할 때에만 치명적으로

낭비된다. 가능한 한 가장 충만한 정도까지 어떤 존재의 시간을 증진시키기에 실패하는 것이 치명적인 형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상승하는 그의 여행에 있어서 시간의 순례자들을 지체시킬 뿐이다. 만일 생존이 획득된다면, 다른 모든 손실들은 만회될 수 있다.

28:6.10 (315.3) 책임 있는 임무배정에 있어서 시간의 의미의 조언은 매우 귀중하다. 시간은 하보나와 파라다이스의 이쪽 편에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치명적인 요소이다. 옛적으로 늘 계신이 앞에서의 최후 심판에 있어서, 시간은 증거의 한 요소이다. 시간의 의미들은 결정을 내리기에, 선택을 이루기에 충분한 시간을 모든 피고인이 이미 가졌음을 보여주는 증언을 항상 잘 제공해야만 한다.

28:6.11 (315.4) 이 시간 평가자들은 또한 예언의 비밀이기도 하다; 그들은 어떤 떠맡은 일이든지 그것을 완성하기에 필요하게 될 시간의 요소를 묘사하며, 그들은 살아있는 다른 계층들의 후란달랑크들 그리고 크로놀덱들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표들로서 믿을만하다. 하느님들은 미리 보고, 따라서 미리 알지만; 시간의 우주들의 상승하는

권한자들은 미래의 사건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되기 위하여 시간의 의미들과 상의해야만 한다.

28:6.12 (315.5) 너희는 맨션세계들에서 이 존재들과 처음으로 만나게 될 것이며, 그들은 그것의 긍정적 채용인 활동 그리고 그것의 부정적 활용인 휴식의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너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그것의 유익한 활용에 대해 거기에서 너희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시간의 두 가지 활용이 모두 중요하다.

28:6.13 (315.6) 4. 신뢰의 엄숙. 신뢰는 의지적 창조체들에 대한 결정적 시험이다. 신로감 발산은 자아-정복, 곧 성격에 대한 참된 측정이다. 이 2품천사들은 초우주들의 경제에서 이중의 목적을 성취 한다: 그들은 모든 의지적 창조체들에게 신용의 의무와 신성함 그리고 엄숙함의 의미를 묘사한다. 동시에 그들은 지배하는 권한자들에게 신임 또는 신뢰를 위한 모든 후보자의 정확한 신뢰가치성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28:6.14 (316.1) 유란시아의 경우에, 너희는 성격을 읽고 특별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스꽝스럽게 시험을 치르지만, 유버사에서 우리는 실재적으로 이 일들을 완전함 안에서

행한다. 이 2품천사들은 오치없는 성격 평가의 살아있는 저울로 신뢰감 발산의 무게를 재며, 그들이 너희를 다 검사한 후에, 우리는 책임을 이행하고 신임을 받고 임무들을 완수할만한 너희의 능력의 한계들을 알기 위하여 그들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너희의 신뢰감 발산의 자산은 가능한 불이행 또는 배반에 속하는 너희의 부채와 나란히 분명하게 놓여진다.

28:6.15 (316.2) 너희의 성격이 이들 추가된 임무들을 품위 있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개발되는 속도에 맞추어서 너희를 증강된 신뢰로 진보시키는 것이 너희 상급자들의 계획이지만, 개별존재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일은 오직 재난을 초래하고 실망감을 안겨줄 뿐이다. 그리고 책임을 사람 또는 천사에게 시기상조로 감당케 하는 오류는, 시간과 공간에 속한 개별존재들의 신뢰 수용력에 대한 이들 틀릴수가 없는 추산정자들의 사명활동을 활용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이 2품천사들은 높은 권한자들을 항상 대동하며, 이 집행자들은 그들의 후보자들이 2품천사 저울에 달리고 “모자람이 없다”라고 선언될 때까지 임무배정을 결코 하지 않는다.

28:6.16 (316.3) 5. 봉사의 고결. 봉사의 특권은 신뢰감 발산의 발견에 즉각적으로 뒤따라온다. 너희 자신의 비(非)-신뢰감 발산, 신뢰의 엄숙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의 너희의 수용력 부족 이외에는, 너희와 증가되는 봉사를 위한 기회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28:6.17 (316.4) 봉사—목적적 봉사, 노예적이 아닌—는 가장 고상한 만족감을 생기게 하며 가장 신성한 존엄성을 나타낸다. 봉사—더 많은 봉사, 증가된 봉사, 어려운 봉사, 모험적인 봉사, 그리고 마침내는 신성하고 완전한 봉사—는 시간의 목표와 공간의 목적지이다. 그러나 시간의 운행 주기들은 진보의 봉사 주기들과 영원히 교대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의 봉사 이후에는 영원의 초(超)봉사가 따라온다. 영원의 봉사 기간 동안 너희가 시간의 활동을 추억하듯이, 시간의 활동을 하는 동안 너희는 영원의 역할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28:6.18 (316.5) 우주의 경제는 받아들임과 내보냄에 기초를 둔다; 영원한 생애에 두루 너희는 무위(無爲)의 단조로움이나 또는 개인성의 침체를 결코 만나지 않게 될 것이다. 진보는 선천적인 움직임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고, 향상은

움직임을 위한 신성한 수용능력으로부터 자라나오며, 성취는 상상력이 있는 모험여행에서의 소산(所産)이다. 그러나 성취를 위한 이 수용능력에 선천적인 것은 윤리에서의 책임, 그 세계와 우주가 서로 다른 많은 유형의 존재들로 채워져 있음을 인지하는 데에 대한 필요성이다. 너희 자신을 포함하는, 이 장엄한 창조의 모든 것이, 너희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우주는 자기중심적인 우주가 아니다. 하느님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선언했고, 너희 주(主)아들은 “너희 중에서 가장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28:6.19 (316.6) 어떤 봉사든지 그것의 실제 본성은, 천사가 하든 사람이 하든, 이들 2품천사의 봉사를 나타내는 얼굴인 봉사의 고결 안에서 충분히 계시된다. 참된 동기와 숨겨진 동기의 충분한 분석이 분명하게 보여 진다. 이들 천사들은 정말로 우주에서 마음을 읽는 자, 가슴 속을 탐색하는 자, 그리고 혼을 계시하는 자들이다. 필사자들은 그들의 생각들을 감추려고 말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들 높은 2품천사들은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그리고 천사의 마음 속에 있는 깊은 동기들을 폭로한다.

28:6.20 (317.1)

6과 7. 위대함의 비밀과 선(善)의 혼. 순례자들이 시간의 의미를 자각해 왔기 때문에, 그 길은 신뢰의 엄숙의 실현을 위하여 그리고 봉사의 고결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이것들이 위대함의 도덕적 요소들인 반면, 거기에는 또한 위대함의 비밀들도 있다. 위대함에 대한 영적 시험들이 적용될 때, 도덕적 요소들은 무시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동료들의 복지를 위한 사욕 없는 수고 속에 계시되는 사심-없음에서의 본질특성, 특별히 빈궁하고 고뇌 속에 있는 가치 있는 존재들, 그것이 행성에서의 위대함의 실제 척도이다. 그리고 유란시아와 같은 세계에서의 위대함의 현시활동은 자아-통제의 표현이다. 위대한 사람은 “어떤 도시를 장악하거나” “어떤 국가를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혀를 억누르는” 자이다.

28:6.21 (317.2)

위대함은 신성과 동의어이다. 하느님은 최극으로 위대하고 선하시다. 위대함과 선함은 간단하게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하느님 안에서 언제까지나 하나를 이룬다. 이 진리는 위대함의 비밀과 선(善)의 혼의 반영적 상호의존에 의해 글자 그대로 그리고 현저하게 설명되는데, 어느 한 편도 다른 편 없이 기능할 수 없다.

신성의 다른 본질특성들을 반영함에 있어서, 초우주 2품천사들은 홀로 활동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만, 위대함과 선함의 반영적 측정치들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어떤 세계에서든지, 어떤 우주에서든지, 위대함에 대한 그리고 선함에 대한 이 반영자들은 함께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들이 초점화구현하는 각 존재에 대한 2원적(二元的) 그리고 상호 의존적 보고서를 항상 제시한다. 위대함은 선함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측정될 수 없는 반면, 선함은 그것의 선천적이고 신성한 위대함을 나타내지 않고는 묘사될 수 없다.

28:6.22 (317.3) 위대함에 대한 측정은 구체마다 다르다. 위대하게 되는 것은 하느님과-같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대함의 본질특성은 전적으로 선(善)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므로, 심지어는 너희의 현재 인간의 위치에서도, 만일 너희가 은혜로운 위로를 통하여 선하게 될 수 있다면, 너희는 그것으로서 위대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더욱 확고하게 바라볼수록, 그리고 너희가 더욱 끈질지게 추구할수록, 신성한 선(善)의 개념은 더욱 분명하게

너희로 하여금 위대함으로, 진정한 생존적 성격의 참된
고결함으로 자라게 할 것이다.

제 7 장. 2품천사들의 사명활동

28:7.1 (317.4) 2품천사들은 초우주들의 수도에서 기원되고 그
위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그들의 연락하는 동료들과 함께
그들은 파라다이스의 해안으로부터 공간의 진화
세계들까지 이른다. 그들은 초우주 정부들의 심의
회의들의 성원들에게 귀중한 보좌관들로서 봉사하며
유버사의 우대거류민단 즉: 하보나 운송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승하는 존재들을 포함하여, 별 연구자들,
천 년 마다의 여행자들, 천상의 관찰자들, 그리고 다른
존재들의 어떤 무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유버사 주변을 도는 490개 연구 세계들에서
거주하는 상승하는 창조체들을 보좌하기 위하여 1차
2품천사들 중 특정인들을 배정하는 기쁨을 누리며,
여기에서는 또한 2차 그리고 3차 계층들 중 대부분이
선생들로서 봉사하기도 한다. 이 유버사 위성들은 시간의
완결하는 학교들인데, 하보나의 일곱-회로화 우주를 위한
준비 과정을 제시한다.

28:7.2 (317.5)

2품천사들의 세 계층들 중, 상승하는 권한자들에게 배정된 3차 집단은 시간의 상승하는 창조체들을 가장 광대하게 돌본다. 너희가 오르본톤의 기다리는 세계들에 너희가 도달할 때까지 그들의 봉사들을 너희가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유란시아로부터 너희가 떠난 직후에 너희는 그들을 이따금씩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유버사 학교 세계들에 너희가 머무는 동안 그들과 함께 너희가 충만하게 사귀게 될 때 그들과의 동행자신분을 즐기게 될 것이다.

28:7.3 (318.1)

이 3차 2품천사들은 시간-절약자들, 공간 단축자들, 실수를 탐지하는 자들, 신실한 선생들, 그리고 큰 혼란과 영적 불확실성의 순간에 불안에 떠는 순례자들의 발을 거기에서 인도하기 위하여, 시간의 교차로에 놓인 자비 안에 있는 영속하는 안내 표지판들—신성한 확실성에 대한 살아있는 표시들—이다. 완전의 입구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너희는 신성의 도구에 접근하고 신(神)의 기법과 접촉을 이루기 시작할 것이다. 너희가 최초의 맨션세계에 도착하는 시간부터 너희의 파라다이스 통과를 향한 하보나 수면(睡眠) 예비 상태 속에 너희의 눈을 감게 될 때까지, 점점 더, 너희는 완전의 문을

향해 오랫동안 여행하는 도중에 너희를 앞장서 온 그
안전하고도 의존할만한 순례자들의 분명한 지식과 확실한
지혜에 대해 그토록 충만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반영하는,
이 놀라운 존재들의 응급 도움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28:7.4 (318.2) 우리에게는 유란시아에 있는 반영적 계층의 이
천사들을 활용하는 충분한 특권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들은 너희 세계를 자주 방문하는데, 배정된 개인성들을
대동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들이 자유롭게 기능하지
못한다. 이 구체는 여전히 부분적인 영적 격리 상태에
있으며, 그들의 봉사에 필연적인 순환회로들 중 일부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 너희 세계가 관련된 반영적
순환회로들에게 한 번 더 반환될 때, 행성간의 그리고
우주간의 통신을 이루는 활동의 대부분은 크게
단순화되고 촉진될 것이다. 유란시아에 있는 천상의
일꾼들은 그들의 반영적 연관-동료들의 이 기능적
단축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만난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이로운 존재들, 시간의 현존 투영자들과 살아있는
공간의 거울들의 봉사들 대부분을 우리가 지역적으로
빠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지닌 도구수단들을 가지고

즐거움 넘치게 우리의 관련사들을 수행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

28:7.5 (318.3) [유버사의 막강한 메신저에 의해 후원되었음]

제 29 편 우주 힘 지도자

29:0.1 (319.1) 행성 간의 문제들과 우주 간의 관련사들을
규제하는 일에 관여하는 전체 우주 개인성들 중에서, 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이 유란시아에 가장 적게
알려져 왔다. 너희 종족들이 천사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천상의 존재들의 계층들의 실존을 오래 전부터 알아온
반면, 물리적 권역의 통제자들 그리고 규제자들에 관한
정보는 거의 전수된 적이 없었다. 심지어는 지금도, 주우주
안에서 기세 통제와 에너지 규정에 관여해야만 되는
다음과 같은 세 집단의 살아있는 존재들 중 마지막 것에
대해서만 충만하게 밝히도록 나에게 허용되었다:

29:0.2 (319.2) 1. 1차 결국 생겨난 주(主)기세조직자.

29:0.3 (319.3) 2. 연관-동료 초월 주(主)기세 조직자.

29:0.4 (319.4) 3. 우주 힘 지도자.

29:0.5 (319.5) 우주 힘 지도자들, 중심들, 그리고 통제자들의 다양한 집단의 개별존재성을 묘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내가 생각하지만, 나는 그들의 활동 권역에 관한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들은 대우주에 두루 에너지에 대한 지능적 규정에 관여해야만 하는 살아있는 존재들의 독특한 집단이다. 최극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그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 부서들을 포옹한다:

29:0.6 (319.6) 1. 일곱 최극 힘 지도자.

29:0.7 (319.7) 2. 최극 힘 중심.

29:0.8 (319.8) 3. 주(主)물리통제자.

29:0.9 (319.9) 4. 모론시아 힘 감독자.

29:0.10 (319.10) 최극 힘 지도자들 그리고 중심들은 거의 영원의 시간부터 존재해 왔고, 우리가 아는 한, 이 계층들의 존재들은 더 이상 창조되지 않았다. 일곱 최극 지도자들은 일곱 주(主) 영들에 의해 개인성구현되었으며, 그 다음에 그들은 1백억 명이 넘는 연관-동료들을 생산함에 있어서 그들의 부모들과 협동하였다. 힘 지도자들의 시대 전에는 중앙우주 밖에 있는 공간의 에너지 순환회로들이

파라다이스의 주(主)기세조직자들의 지능적 감독 아래에 있었다.

29:0.11 (319.11) 물리적 창조체들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적어도 영적 존재들에 대한 대조적 개념을 소유하고 있지만; 힘 지도자들을 상상하는 일은 필사자 마음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비교적 높은 실존 차원들을 향한 상승 진보의 기획에 있어서 너희는 최극 지도자들 또는 힘 중심들 중 어느 쪽과도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어떤 특별한 드문 경우에 너희는 물리통제자들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며, 너희는 맨션세계들에 도달할 때 모론시아 힘의 감독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일하게 될 것이다. 이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은 그 지역 창조계의 모론시아 체제 안에서만 배타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그 지역우주와 관계되는 구역 안에서의 그들의 활동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1 장. 일곱 최극 힘 지도자

29:1.1 (320.1) 일곱 최극 힘 지도자들은 대우주의 물리-에너지 규제자들이다. 일곱 주(主) 영들에 의한 그들의 창조는 참된 영 조상으로부터의 반(半) 물질적 자손이 도출된, 첫

번째로 기록된 사례이다. 일곱 주(主) 영들이 개별적으로 창조할 때, 그들은 천사 계층에 있는 높은 영적 개인성들을 나오게 한다; 그들이 집단적으로 창조할 때, 그들은 때때로 이들 높은 유형의 반(半)물질적 존재들을 생산한다. 그러나 이들 준(準)-물리적 존재일지라도 유란시아 필사자들의 짧은-범위 시야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29:1.2 (320.2) **최극 힘** 지도자들은 숫자가 일곱이고, 그들은 모습과 기능에 있어서 동일하다. 각각이 즉각적인 관계적-연합되어 있는 주(主) 영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하나가 다른 이로부터 구별될 수 없으며, 그에게는 각각이 완벽하게 기능적으로 복종한다. 주(主) 영들 각자는 그들의 집단적 자손 중 하나와 그렇게 영원히 연합되어 있다. 동일한 그 지도자는 같은 영과 항상 관계적-연합을 이루며, 그들이 일하는 협력관계는 물리적 그리고 영적 에너지의, 반(半)물리적 존재와 영 개인성의 독특한 관계적-연합을 가져온다.

29:1.3 (320.3) **일곱 최극 힘** 지도자들은 파라다이스 가장자리에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서서히 회전하는 그들의 현존들은 주(主) 영들의 기세-초점 본부의 위치를

나타낸다. 이 힘 지도자들은 초우주들의 힘-에너지 규정 안에서 단독으로 기능하지만 중앙 창조의 관리-행정 안에서는 집단적으로 기능한다. 그들은 파라다이스로부터 작용하지만 대우주의 전체 부서들 안에서는 효력적인 힘 중심들로서 자신을 유지한다.

29:1.4 (320.4) 이들 막강한 존재들은 힘 중심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일곱 초우주들에 두루 흩어져 있는 물리통제자들의 광대한 무리의 물리적 조상들이다. 그러한 종속된 물리적-통제 유기체들은 기본적으로 균일한데, 각 초우주 무리단의 특이한 색조의 경우를 제외하면 똑같다. 초우주 봉사를 바꾸기 위하여, 그들은 다시 색조를 띠도록 파라다이스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물리적 창조는 관리-행정 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제 2 장. 최극 힘 중심

29:2.1 (320.5) 일곱 최극 힘 지도자들은 개별적으로 그들 자신을 재생산할 수 없지만, 집단적으로 그리고 일곱 주(主) 영들과 관계적-연합하여, 그들은 자신들을 닮은 다른 존재들을 재생산—창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대우주의 최극 힘 중심들이 그렇게 기원되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일곱 집단들로 기능한다:

29:2.2 (320.6) 1. 최극 중심 감독자.

29:2.3 (320.7) 2. 하보나 중심.

29:2.4 (320.8) 3. 초우주 중심.

29:2.5 (320.9) 4. 지역우주 중심.

29:2.6 (320.10) 5. 별자리 중심.

29:2.7 (320.11) 6. 체계 중심.

29:2.8 (320.12) 7. 분류되지 않은 중심.

29:2.9 (321.1) 최극 힘 지도자들과 함께 이들 힘 중심들은 높은 의지적 자유와 행동의 존재들이다. 그들은 모두 셋째-근원 개인성을 자질로서 부여받았고 높은 계층의 명백한 의지적 수용능력을 드러낸다. 우주 힘 체계의 이들 지도하는 중심들은 절묘한 지능 자질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들은 대우주의 힘 체계의 지성이고 주(主)물리통제자들 그리고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의 멀리-퍼지는 기능들의

모든 광대한 연결망에 대한 마음 통제에서의 기법의 비밀이다.

29:2.10 (321.2) 1. 최극 중심 감독자. 최극 힘 지도자들의 이 일곱 조화-협동자들 그리고 연관-동료들은 대우주의 주 에너지 순환회로들의 규제자들이다. 각 중심 감독자는 일곱 최극집행자들의 특별한 세계들 중 하나에 본부를 두고 있고, 그들은 일반적 우주 관련사들에 대한 이 협조자들과 긴밀한 관계적-연합을 이루면서 활동한다.

29:2.11 (321.3) 최극 힘 지도자들과 최극 중심 감독자들은 “중력 에너지”의 차원들 아래에 있는 모든 조화우주 현상들에 관하여 개별존재와 그리고 공동으로 둘 모두로서 기능한다. 연락을 이루면서 활동할 때, 이 14명의 존재들은 우주 힘에 대한 것이 되고, , 이것은 일곱 최극집행자들이 일반적 우주 관련사들에 대한 것이 되고, 그리고 일곱 주(主) 영들이 우주 마음에 대한 것이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

29:2.12 (321.4) 2. 하보나 중심.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의 창조 전에, 힘 중심들이 하보나에 있었어야 되지는 않았지만, 이 아주-먼 시간 이후로 줄곧, 백만 명이 중앙 창조 안에서

기능해 왔는데, 각 중심은 1,000개 하보나 세계들을 감독한다. 이곳 신성한 우주 안에 에너지 통제의 완전, 다른 곳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있다. 에너지 규정의 완전은 전체 힘 중심들 그리고 공간의 물리통제자들의 궁극적 목표이다.

29:2.13 (321.5) 3. 초우주 중심. 일곱 초우주들 각각의 수도 구체에서 거대한 지역을 차지하는 것은 3차 계층의 1,000개 힘 중심들이다. 분리된 10개의 1차 에너지의 세 흐름들이 각각 이 힘 중심들에게 들어오지만, 불완전하게 통제되더라도 전문화 된 그리고 잘-방향이 잡힌 일곱 힘 순환회로들은 연합하여 행동하는 그들의 자리로부터 나아간다. 이것은 우주 힘의 전자(電子) 조직이다.

29:2.14 (321.6) 모든 에너지는 파라다이스 주기 안에서 순환되지만, 우주 힘 지도자들은 중앙 그리고 초우주들의 공간 기능들 안에서 변형되는 그들을 그들이 발견할 때 파라다이스 하부의 기세-에너지들을 지도하는데, 이 에너지들을 유익하고 건설적으로 적용하는 경로들 속으로 바꾸고 지도한다. 하보나 에너지와 초우주들의 에너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초우주의 힘 전하(電荷)는 각각

10개로 분리된 세 위상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삼중적 에너지 전하는 대우주의 공간에 두루 퍼져 있다; 그것은 일곱 초(超)창조계 각각의 전체를 에워싸 들이키고 적시어 씻기는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 대양(大洋)과 같다.

29:2.15 (321.7) 우주 힘의 전자적 조직은 일곱 위상들로 기능하며 지역적 또는 직선적 중력에 대해 다양한 응답을 나타낸다. 이 칠중 순환회로는 초우주 힘 중심들로부터 진행하고 각 초(超)창조에 널리 퍼져 있다. 시간과 공간의 그러한 특별한 흐름들은, 대서양 한가운데에 둘러싸여진 현상으로서의 멕시코 만류가 기능하고 있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특별한 목적들을 위하여 개시되고 지도를 받는 분명하고 그리고 지역화된 에너지 움직임들이다.

29:2.16 (321.8) 4. 지역우주 중심. 각 지역우주의 본부에는 4번째 계층의 100 명의 힘 중심들이 주둔하고 있다. 그들은 초우주 본부로부터 방사되어 나오는 일곱 힘 순환회로들을 낚추고 그리고 아니면 변경시키기 위하여 기능하면서, 것처럼 그것을 별자리와 체계의 봉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공간의 지역적인 천문학적 대재앙들은 이 힘 중심들에게는 일시적인 관심에 속한다;

그들은 종속된 별자리와 체계로 효력적인 에너지를 순차적으로 보내는 일에 종사한다. 그들은 훗날 우주 조직화와 에너지 동원의 시기에, 창조자 아들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 중심들은 거주민이 사는 중요한 점들 사이의 행성간 통신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는, 집중된 에너지 통로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한 에너지 통로 또는 선(線)은, 때로 에너지 경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한 힘 중심으로부터 다른 힘 중심으로 또는 한 물리통제자로부터 다른 통제자에게로 가는 에너지의 직통 순환회로이다. 그것은 개별화된 힘 흐름이며 분리되지 않은 에너지의 자유 공간 운동들과 대비된다.

29:2.17 (322.1) 5. 별자리 중심. 살아있는 이 힘 중심들 중 10명이 각 별자리에 주둔하고 있는데, 소속된 100개 지역체계들에게 에너지 투영자들로써 기능한다. 통신과 운송을 위한, 그리고 생명 유지를 위해 물리적 에너지의 일정한 형태들에 의존하는 살아있는 창조체들에게 에너지를 주입하기 위하여, 힘 공급선들이 이 존재들로부터 외부로 나간다. 그러나 그 힘 중심들뿐만 아니라 종속된 물리통제자들도, 기능적 조직에서의 생명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6. 체계중심. 한 명의 최극 힘 중심이 각 지역체계에 영구적으로 배정되어 있다. 이 체계중심들은 시간과 공간의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게 힘 순환회로들을 보낸다. 그들은 종속된 물리통제자들의 활동을 조화-협동시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체계 안에서 힘의 만족스러운 배분을 보장하기 위해 기능한다. 행성들 사이의 순환회로 교대는 일정한 물질적 에너지들의 완전한 조화-협동에 그리고 물리적 힘의 효과적 규정에 의존한다.

7. 분류되지 않은 중심. 이들은 거주민이 사는 행성들이 아니라 특별한 지역적 상황들에서 기능하는 중심들이다. 개별 세계들은 주(主)물리통제자들에게 맡겨져 있으며 그들의 체계의 힘 중심에 의해 보내진 순환회로에 둘러싸인 힘 줄기들을 받아들인다. 가장 비범한 에너지 관계들에 속한 그 구체들만이 우주 균형 바퀴들 또는 에너지 통치자들로서 활동하는 일곱 번째 계층의 힘 중심들을 갖는다. 모든 활동 위상마다 이 힘 중심들은 비교적 높은 통제 단위들에서 기능하는 그들과 충분히 똑같지만, 백만 개 중 어느 한 공간 본체도 그러한 살아있는 힘 조직을 품고 있지 않다.

제 3 장. 힘 중심들의 권역

29:3.1 (322.4) 초우주들에 두루 퍼져 있는 최극 힘 중심들의 숫자는 그들의 연관-동료들과 종속들을 포함하여 1백억이 넘는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들의 파라다이스 선조들, 최극 힘 지도자들과 완전한 동조와 완성된 연락 속에 있다. 대우주의 힘 통제는 일곱 주(主) 영들, 일곱 최극 힘 지도자들의 창조자들의 보호와 지도에 그렇게 맡겨져 있다.

29:3.2 (322.5) 최극 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들과 보좌관들과 종속들 모두는 전체 공간의 모든 법정들에 의해 불안 또는 방해로부터 언제까지나 면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초우주 정부 또는 창조자 아들들의 지역우주 관리-행정에 속한 관리-행정적 지도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29:3.3 (323.1) 이 힘 중심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무한한 영의 자녀들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 그들은 우주 물리적 조직의 후기 신(新)시대 동안 창조자 아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아들들의 관리-행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지 않는다. 그러나 그 힘 중심들은 어떤

면에서 최극존재의 조화우주 전반적-통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29:3.4 (323.2) 힘 중심들 그리고 물리통제자들은 훈련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완전하게 창조되고 선천적으로 완전하게 행동한다. 그들은 결코 한 기능으로부터 다른 기능으로 옮기지 않는다; 기원적으로 배정된 대로 항상 봉사한다. 그들 계급에는 진화가 없고, 이것은 두 계층의 일곱 부서들 전체에게도 그러하다.

29:3.5 (323.3) 기억 속으로 돌이킬 수 있는 상승하는 과거가 없기 때문에, 힘 중심들과 물리통제자들은 결코 장난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속속들이 사무적이다. 그들은 항상 임무를 수행한다; 우주적 기획 안에는 물리적 계통의 에너지의 중단에 대비하는 준비가 없으며; 이 존재들은 시간과 공간의 에너지 순환회로들에 대한 그들의 직접적 감독을 1초의 몇 분의 1이라도 중단할 수 없다.

29:3.6 (323.4) 힘 지도자들과 중심들과 통제자들은 물질적 또는 반(半)물질적 에너지인 힘을 제외하고 모든 창조 안에 있는 어느 것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것을

지원시키지는 않지만, 그들은 그것을 변형시키고 조종하고 방향화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물리적 중력의 당기는 힘 이외에는 무엇이든지 그것과 관계되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중력에 대한 그들의 관계는 전적으로 부정적이다.

29:3.7 (323.5) 힘 중심들은 분리된 다양한 에너지 집중들의 살아있는 기능구조들과 연락을 이루는 물질적 계층의 광대한 기능구조들과 조화-협동들을 활용한다. 각각의 개별적 힘 중심은 정확하게 1백만 단위의 기능적 통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에너지-변형 단위들은 사람의 물리적 몸체의 살아있는 기관들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들 힘 규정의 “살아있는 기관들”은 연관 가능성들 안에서 유동적이고 정말로 변화무쌍하다.

29:3.8 (323.6) 우주 에너지의 주 순환회로들에 대한 조종과 규제를 이 살아있는 존재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방법을 설명하는 일은 나의 능력을 철저히 벗어난다. 이 거대하고 거의 완전하게 유능한 힘 중심들에 관하여 너희에게 더 알려주고자 시도하는 일은 오직 너희에게 혼돈을 더해주고 더 놀라게 할뿐일 것이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시에 “개인적”이지만, 그들은 너희의 이해 범위를 벗어난다.

29:3.9 (323.7) 하보나 밖에서는 최극 힘 중심들이 오직 특별하게 구축된 (고안건축의) 구체들에서만 또는 적절하게 건축된 다른 공간 본체들에서만 기능한다. 고안건축의 그 세계들은, 그들이 이들 구체들 위에 부은 것처럼 공간의 에너지들을 방향화하고 변형시키고 집중하기 위한 선택적 스위치들로서 살아있는 힘 중심들이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어진다. 그들은 평범한 진화적 태양 또는 행성에서는 그렇게 기능할 수 없다. 어떤 집단들은 특별한 이 본부 세계들을 가열시키는 일 그리고 다른 물질적 필요에도 관여한다. 그리고 그것이 유란시아 지식의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열이 나지 않고 빛나는 빛을 발산하는 일에 이 계층의 살아있는 힘 개인성들이 많이 관여함을 단언할 수 있다. 그들이 이 현상을 산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것의 보급과 방향성구현에 관여한다.

29:3.10 (323.8) 힘 중심들 그리고 그들의 종속 통제자들은 조직된 공간의 물리적 에너지들 전체에 대한 활동에 배정된다.

그들은 각각 10가지 에너지들로 이루어진 세 개의 기본 흐름들을 가지고 일한다. 그것이 조직된 공간의 에너지 전하이다; 조직된 공간은 그것들의 권역이다. 우주 힘 지도자들은 일곱 초우주들의 현재 경계선들 밖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 거대한 기세의 활동들과 관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갖고 있지 않다.

29:3.11 (324.1) 힘 중심들 그리고 통제자들은 각 기본 우주 흐름 안에 포함된 10가지 에너지 형태들 중 오직 7가지에 대해서만 완전한 통제를 행사한다; 그들의 통제로부터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제외된 그 형태들은 분별불가 절대자가 지배하는 에너지 현시활동의 예측 불가능 영역들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에 그들이 이 절대자의 원초기세에 영향을 가한다면, 우주 절대자의 어떤 자극들에 대해 일정한 물리통제자들이 때로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그 견해를 보장할만한 어떤 작은 증거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기능들을 알지 못한다.

29:3.12 (324.2) 살아있는 이 힘 기능구조들은 분별불가 절대자의 주 우주 에너지 전반적-통제에 의식적으로 관여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의 전체적인 그리고 거의 완전한 힘지도 기획이 어떤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이 초(超)중력 현존에 종속되어 있다고 추측한다. 어떤 지역적 에너지 상황에서든지 그 중심들과 통제자들은 최극위-인접을 발휘하지만, 그들은 초(超)에너지 현존과 분별불가 절대자의 식별 불가능한 행위를 항상 인식한다.

제 4 장. 주(主)물리통제자

29:4.1 (324.3) 이 존재들은 최극 힘 중심들의 기동력 있는 종속들이다. 그 물리통제자들은 그들이 자동-운송의 괄목할만한 다양성 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본성에서의 개별존재성 탈바꿈의 수용능력을 자질로서 부여받았는데, 단독 메신저들의 비행에 가까운 속도로 지역적 공간을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공간 횡단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어떤 물질적 구체로부터 떠나갈 때 관성의 저항과 중력의 작용을 극복함에 있어서 그들의 동료들 그리고 다른 일정한 유형의 존재들의 도움을 둘 모두 필요로 한다.

29:4.2 (324.4) 주(主)물리통제자들은 대우주에 두루 봉사한다. 그들은 초우주들의 본부에 이르기까지 일곱 최극 힘

지도자들에 의해 파라다이스로부터 직접적으로 통치된다; 그들은 연관-동료 주(主) 기세 조직자들의 요원으로부터 일곱 주(主) 영에 의해 파견된 힘에서의 높은 위원들인, 평형 위원회에 의해 지도를 받고 그리고 분배된다. 이들 높은 위원들은, 전체 초우주의 힘 압력과 에너지 전하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도구들인, 주(主) 후란달랑크들의 읽어들이는 것과 그리고 등록하는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29:4.3 (324.5)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현존이 대우주 주변을 돌고 영원의 순환계 주변을 지나갈 때, 일곱 주(主) 영들 중 어느 하나의 영향은 단일 초우주에 제한된다. 일곱 초(超)창조들 각각 사이에는 에너지의 뚜렷한 분리와 힘의 순환회로들의 분리가 있다; 따라서 개별화된 통제 방법들이 지배해야만 하고 또 그렇게 한다.

29:4.4 (324.6) 주(主)물리통제자들은 최극 힘 중심들의 직접적인 자손들이며, 그들의 숫자는 다음을 포함 한다:

29:4.5 (324.7) 1. 연관-동료 힘 지도자.

29:4.6 (324.8) 2. 기계적 통제자.

29:4.7 (324.9) 3. 에너지 변환자.

29:4.8 (325.1) 4. 에너지 전달자.

29:4.9 (325.2) 5. 1차 연관자.

29:4.10 (325.3) 6. 2차 분리자.

29:4.11 (325.4) 7. 후란달랑크들 그리고 크로놀텍.

29:4.12 (325.5) 선택에서의 개별적 힘들을 소유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이들 계층 전체가 개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마지막 네 가지 존재들은 그들 상급자들의 총동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 그리고 존재하는 에너지 조건들에 대해 반응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응답이 전적으로 기계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자동장치처럼 보이지만, 그들 전체는 지능의 차별적 기능을 나타낸다.

29:4.13 (325.6) 개인성은 반드시 마음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저급한 유형의 동물들의 경우와 같이 그리고 일정한 이 종속 물리통제자들의 경우와 같이, 마음은 모든 선택 힘을 빼앗겼을 때에도 생각할 수 있다. 더욱 자동적인

이 물리적 힘의 규제자자들 대부분은 그 말의 어느 의미에서 보더라도 개인들이 아니다. 그들은 의지와 독립 결정권을 자질로서 부여받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할당된 임무를 위한 설계의 기계적 완전성에 전적으로 굴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매우 지능적인 존재들이다.

29:4.14 (325.7) 물리통제자들은 유란시아에서 발견되지 않은 기초 에너지들의 조절에 주로 관여하고 있다. 이들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들은 행성간 운송 체계에 그리고 일정한 통신 기법에 매우 필수적이다. 소리에 상응하는 것들을 전달하거나 상상력을 확장하는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에너지 선로를 깔 때, 발견되지 않은 이들 에너지 형식들은 살아있는 물리통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들에 의해 유용하게 된다. 동일한 이 에너지들이 가끔 중도 창조체들에 의해 그들의 일상 작업에 사용된다.

29:4.15 (325.8) 1. 연관-동료 힘 지도자. 놀라울 정도로 유능한 이 존재들은 영역들의 끊임없이 변하는 에너지 상태의 계속-바뀌는 필요성들에 따라서 주(主)물리통제자들의 모든 계층들에 대한 임무배정 그리고 파견으로 설명된다.

물리통제자들의 광대한 예비자들이 소구역들의 본부 세계들에 유지되고 있으며, 이 집결 지점으로부터 그들은 우주들과 별자리들과 체계들의 본부들에게로 그리고 개별 행성들에게로 연관-동료 힘 지도자에 의해 주기적으로 파견된다. 그렇게 배정될 때, 그 물리통제자들은 화해 위원회의 신성한 집행자들의 명령에 일시적으로 복종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극 힘 중심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 지도자들에게만 복종한다.

29:4.16 (325.9) 3백만 명의 연관-동료 힘 지도자가 오르본톤 소구역들 각각에 배정되어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다재다능한 이 존재들이 초우주에 할당되는 전체 숫자가 30억이 되게 한다. 그들 자신의 예비자 들은 동일한 이 소구역 세계들에서 유지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지능 에너지 통제 그리고 변형의 기법의 과학을 연구하는 모든 존재들의 강사로서 봉사하기도 한다.

29:4.17 (325.10) 이 지도자들은 소구역에서 집행적 봉사를 하는 기간과 공간의 영역들에 대한 검열 봉사를 하는 기간을 똑같은 길이로 번갈아 보낸다. 적어도 한 명의 대리 검열자가 각 지역체계에 항상 제시되어 있는데, 그 수도

구체에 본부를 유지한다. 그들은 광대한 살아있는 에너지
집합 전체가 조화로운 동조성을 이루도록 유지시킨다.

29:4.18 (325.11) 2. 기계적 통제자. 이들은 연관-동료 힘 지도자의
대단히 다재다능하고 기동력 있는 보좌관들이다. 수
조(兆)에 해당하는 그들이 너희 소구역인 엔사에 임명되어
있다. 이 존재들이 기계적 통제자라고 불리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상급자들에 의해 그토록 완벽하게 지배되고, 연관-
동료 힘 지도자들의 뜻에 그토록 완전히 복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은 매우
지능적이고, 그들의 활동은 비록 본성이 기계적이고
사무적이긴 하지만, 노련하게 발휘되고 있다.

29:4.19 (326.1) 거주되는 세계들에 배정된 전체
주(主)물리통제자들 중에서, 기계적 통제자들이 가장
월등하게 힘이 있다. 다른 모든 존재들을 초과하는
반(反)중력의 살아있는 자질을 소유하기 때문에, 각
통제자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회전하는 거대한 구체만이
필적할 수 있는 중력 저항을 소유한다. 이 통제자들 중
10명이 현재 유란시아에 머물고 있으며, 그들의 가장
중요한 행성 활동들 중 하나는 세라핌천사 운송체들이

쉽게 떠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능함에 있어서, 세라핌천사의 출발을 위한 최초 추진력을 1,000명의 에너지 전송자 부대가 제공하는 동안 10명의 기계적 통제자들 전체가 하나가 되어 활동한다.

29:4.20 (326.2) 기계적 통제자들은 에너지 흐름의 방향을 정하기에 그리고 전문화된 흐름들 또는 순환회로들 안으로 그것의 집중력을 조장하기에 충분하다. 이 강력한 존재들은 물리적 에너지들의 분리와 방향성구현 그리고 강화에 그리고 행성간 순환회로들의 압력을 균등화시키는 일에 많은 역할을 한다. 그들은 초우주의 힘 전하를 구성하는, 공간의 30개 물리적 에너지들 중 21개의 조종에 숙련자이다. 그들은 또한 9가지 물리적 에너지의 미묘한 형태들 중 여섯 가지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훨씬 잘 이룰 수 있다. 서로에 대한 그리고 일정한 그 힘 중심들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 관계에 이 통제자들을 배치함으로써, 연관-동료 힘 지도자는 힘 조절과 에너지 통제에 있어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29:4.21 (326.3) 주(主)물리통제자들은 종종 수백, 수천, 그리고 심지어는 수백만에 이르는 부대들을 이루어 기능하고

그들의 위치와 편성을 변화시킴으로써 개별적 수용능력뿐만 아니라 집단적 능력에 에너지 통제를 이룰 수 있다. 요구조건들이 변함에 따라, 그들은 에너지양과 움직임을 향상시키고 촉진시키거나 또는 에너지 흐름들을 억류하고 압축하고 방해할 수 있다. 그들은 소위 촉매 작용 증강 화학적 반응이라 불리듯이 에너지와 힘 변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선천적인 능력에 의해 그리고 최극 힘 중심들과 협조하여 기능한다.

29:4.22 (326.4) 3. 에너지 변환자. 초우주 안에 있는 이 존재들의 숫자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다. 사타니아 안에만 해도 거의 1,000,000명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할당되는 숫자는 거주민이 사는 각 세계마다 100명이다.

29:4.23 (326.5) 에너지 변환자들은 일곱 최극 힘 지도자들과 일곱 중앙 감독자들의 공동 창조이다. 그들은 더욱 개인적인 물리통제자들의 계층 안에 있으며, 연관-동료 힘 지도자가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 제시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그 변환자들이 지시한다. 그들은 떠나가는 세라핌천사 운송체들 전체에 대한 행성 검열자들이다. 모든 등급의 천상의 창조체는 보조 지도자들 그리고 에너지

변환자들의 더욱 개인적인 계층들과 연합함으로써만 물리통제자들의 비교적 덜 개인적인 계층들을 활용할 수 있다.

29:4.24 (326.6) 이들 변환자들은 힘이 넘치고 효력 있는 살아있는 스위치들인데, 주어진 힘의 처분 또는 방향 결정성에 대하여 또는 반하여 자신들을 배치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거대한 행성 그리고 별 모양의 이웃들 사이를 지나가는 강력한 에너지 흐름들에 대하여 행성들을 절연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에 있어서 노련하다. 그들의 에너지-변화 속성들은 그들로 하여금 우주적 에너지 균형 또는 힘 평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임무에 가장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든다. 한때는 그들이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축적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다른 때에는 그들이 에너지를 발산하거나 해방시키는 것으로 보였다. 그 변환자들은 그들 각자의 영역들의 살아있는 에너지와 죽은 에너지의 “저장-축전기” 잠재를 증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물리적 그리고 반(半) 물질적 에너지들과 관계하는데, 그들은 생명의 권역에서는 직접적으로 기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들의 형체들을 바꾸지도 않는다.

29:4.25 (327.1)

어떤 면에서는 에너지 변환자들이 전체의 살아있는 반(半) 물질적 창조체들 중에서 가장 괄목할만하고 신비로운 존재들이다.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물질적 분화를 이루고 있고, 그들의 연락 관계들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들의 연관된 현존들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그 에너지에 대한 큰 영향을 그들이 행사할 수 있다. 물리적 영역들의 지위는 그들의 노련한 조종 아래에서 어떤 변환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공간의 에너지들의 물리적 형체를 변형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동료 통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초우주 힘 전하의 30개 물리적 에너지들 중 27개의 형체 그리고 잠재를 실재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에너지들 중 세 가지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사실은 그들이 분별불가 절대자의 수단들이 아님을 증명한다.

29:4.26 (327.2)

주(主)물리통제자들 중 나머지 네 집단들은 그 말의 수용 가능한 정의(正義) 안에서 볼 때 거의 개인들이 아니다. 이 전송자들, 연관자들, 분리자들, 그리고 후란달랑크들은 그들의 반응에 있어서 전적으로 자동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의미에서 지능적이다. 우리는 이 놀라운 실존개체들에 대한 우리

지식에 있어서 크게 제한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과 통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역의 언어를 납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은 우리들과 통신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의 통신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응답할 힘은 없다.

29:4.27 (327.3) 4. 에너지 전달자. 이 존재들은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주로 행성간의 입장에서 기능한다. 그들은 그것이 개별 세계들에서 현시되듯이 놀라운 에너지 발송자들이다.

29:4.28 (327.4) 에너지가 새로운 순환회로로 방향전환 될 때, 그 전송자들은 바람직한 에너지 경로를 따라 한 줄로 자신들을 배치하며, 에너지-인력이라는 그들의 독특한 속성들 덕분에, 그들은 원하는 방향에서 증가된 에너지 흐름을 실재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 그들은 전자 에너지의 일정한 형태의 흐름에 대하여 어떤 금속 순환회로들이 방향을 정하는 것과 똑같이 이것을 향한다; 그들은 30가지 물리적 에너지 형태들 중 반이 넘는 살아있는 초(超)전도체들이다.

29:4.29 (327.5) 행성에서 행성으로 그리고 개별 행성에서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지나가는 분화된 에너지의 약해지는 흐름들을 복구시키는 일에 효력이 있는 노련한 연락을 전달자들이 형성한다. 그들은 다른 유형의 살아있는 존재에 의해 인식되기에는 너무 약한 흐름들을 감지할 수 있으며, 그들은 동행하는 메시지가 완전하게 인지가능하게 되도록 이들 에너지를 증강시킬 수 있다. 그들의 봉사는 방송 접수자들에게 매우 귀중하다.

29:4.30 (327.6) 에너지 전송자들은 전달 가능한 인식의 모든 형태들에 관하여 기능할 수 있다; 그들은 멀리 있는 장면을 "볼 수 있게"할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다. 그들은 지역체계들 안에 그리고 개별적 행성들 위에 응급 통신 회선들을 제공한다. 이들 서비스들은 정식으로 설립된 순환회로들의 외부와 통신할 목적을 원하는 모든 창조체들에게 실천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29:4.31 (327.7) 이들 존재들은, 에너지 변환자들과 함께, 힘을 잃은 대기를 소유한 그 세계들에서 필사자 실존의 유지에

필수불가결하며, 그들은 숨을 쉬지 않는 행성들에 있는 생명의 기법에서의 집대성을 이루는 한 부분이다.

29:4.32 (328.1) 5. 1차 연관자. 이 흥미롭고 매우 귀중한 실존개체들은 훌륭한 에너지 보존자들 그리고 보호관리자들이다. 행성이 태양 빛을 저장하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살아있는 이 유기체들은 추가적 현시활동들의 시기 동안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들은 거대한 크기로 일하는데, 공간의 에너지들을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물리적 상태로 전환시킨다. 그들은 또한 물질적 실존의 원시적 단위들 중 어떤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지점까지 이 변환들을 진행시킬 수 있다. 이 존재들은 단순히 그들의 현존에 의해 활동한다. 그들은 어떤 면으로도 이 기능에 의해 고갈되거나 비워지지 않는다; 그들은 살아있는 촉매제들처럼 활동한다.

29:4.33 (328.2) 마이너스 현시활동의 시기 동안 그들은 누적된 이 에너지들을 방출할 능력을 갖는다. 그러나 에너지와 물질에 대한 너희의 지식은 그들의 활동의 이 위상에 해당하는 기법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진보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항상 우주적 법칙에 순응하여

수고하는데, 너희가 동일한 알파벳 글자들로 방대한 다른 이야기를 엮게 만들기 위하여 조절 가능한 글자들을 조종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원자들과 전자들 그리고 극자들을 다루고 조종한다.

29:4.34 (328.3) 연관자들은 조직화하는 물리적 구체 위에 나타나는 최초의 생명 집단이며, 그들은 너희가 살아있는 존재들의 실존과는 전혀 모순되는 것으로 간주할 물리적 기온에서 기능할 수 있다. 그들은 단순히 인간의 상상력의 범위를 초월하는 생명의 계층을 대변한다. 그들의 협력자들인 분리자들과 함께, 그들은 모든 지능 창조체들 중 가장 노예적이다.

29:4.35 (328.4) 6. 2차 분리자. 1차 연관자들과 비교하면, 거대한 반(反)중력 자질을 가진 이 존재들은 역전시키는 일꾼들이다. 지역 세계들에서 또는 지역체계들에서 물리적 에너지의 특별한 또는 변형된 형태들이 다 소모될 어떤 위험성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살아있는 이 조직들이 에너지의 끝없는 공급을 진화시키는 독특한 능력을 자질로서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 덜 알려진 어떤 형태의 물질로부터 유란시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의 어떤 형태의 진화에 주로
관여하고 있다. 그들은 정말로 공간의 연금술사들이며
시간의 놀라운-일꾼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드는 모든
놀라운 일들에 있어서, 그들은 조화우주 최극위의 명령을
결코 어기지 않는다.

29:4.36 (328.5) 7. 후란달랑크 이들 존재는 세 가지 계층의 에너지-
통제 존재들 즉: 1차 그리고 2차 기세조직자들과 힘
지도자들 전체의 공동 창조이다. 후란달랑크들은 전체
주(主)물리통제자들 중 가장 숫자가 많으며; 사타니아에서
기능하는 숫자만 해도 너희의 숫자 개념을 벗어난다.
그들은 거주민이 사는 모든 세계들에 머물고 있으며
물리통제자들 중 비교적 높은 계층들에게 항상 배속되어
있다. 그들은 중앙 그리고 초우주 안에서 그리고 외부
공간의 권역들 안에서 상호교대로 기능한다.

29:4.37 (328.6) 후란달랑크들은 기초 우주 무리의 각 형태마다
하나씩 30개 부서로 창조되며, 그들은 살아있고 자동적인
현존과 압력과 속도 계량기로서 배타적으로 기능한다.
살아있는 이 지표들은 모든 형태의 기세-에너지의 상태에
대한 자동적이고 정확한 등록에만 관여한다. 그들은

광대한 반영성 기능구조가 마음적 우주에 관계된 것처럼 물리적 우주에 관계된다. 양적 그리고 질적 에너지 현존 이외에 시간을 등록한 후란달랑크들은 크로놀덱들이라고 불린다.

29:4.38 (328.7) 나는 후란달랑크들이 지능적임을 알지만 그들을 살아있는 기계들 이외의 어떤 것으로 분류할 수 없다. 살아있는 이 기능구조들을 너희가 납득하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의 지능체와 마찬가지로 정밀하고 정확하게 일하는 너희 자신의 기계 장치들에 그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일 너희가 이 존재들을 상상하게 된다면, 정확성을 훨씬 더 섬세하게 갖고, 오히려 극도의 정밀성을 가지고, 엄청난 계산을 요구하는 더 까다로운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지능적이고 살아있는 기능구조들(실존개체들)을 우리가 실재로 대우주에서 갖고 있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너희의 상상력에 그림을 그려보라.

제 5 장. 주(主) 기세조직자

29:5.1 (329.1) 기세조직자들은 파라다이스에 거주하지만, 그들은 주(主)우주에 두루 기능하는데, 보다 특별하게는

조직화되지 않은 공간의 권역들에서 기능한다. 이 비범한 존재들은 창조자들도 아니고 창조체들도 아니며, 그들은 두 가지 넓은 봉사 부서들을 포함 한다:

29:5.2 (329.2) 1. 1차 결국 생겨난 주(主)기세조직자.

29:5.3 (329.3) 2. 연관-동료 초월 주(主)기세 조직자.

29:5.4 (329.4) 원시-기세 조종자들인 강력한 이 두 계층들은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의 감독 아래에서 배타적으로 일하며, 현재 그들은 대우주의 경계선 안에서 광대하게 기능하고 있지는 않다.

29:5.5 (329.5) 1차 주(主)기세조직자들은 분별불가 절대자의 원시적 또는 기본적 공간-기세들의 조종자들이다; 그들은 성운 창조자들이다. 그들은 공간의 에너지 집진 장치의 살아있는 선동자들이며 이 거대한 현시활동들의 초기 조직가들 그리고 방향 설정가들이다. 이 기세조직자들은 원초기세(직접적인 파라다이스 중력에 응답하지 않는 에너지-이전(以前) 형태)를 1차 또는 강력 에너지, 분별불가 절대자의 독점적 지배로부터 파라다이스 섬의 중력 지배로 변환하는 에너지로 변화시킨다. 그 때 연관-

동료 기세조직자들이 그들을 따라오는데, 그들은 1차 단계로부터 2차 단계 또는 중력-에너지 단계를 거쳐 에너지 변형의 과정을 계속한다.

29:5.6 (329.6) 지역우주의 창조를 위한 계획이 완성되면, 창조자 아들의 도착에 의해 신호를 받고, 연관-동료 주(主) 기세조직자들은 천문상의 사법권을 갖는 초우주 안에서 활동하는 힘 지도자들의 계층에게 자리를 내준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이 없을 때에는, 지금도 그들이 외부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보조 기세조직자들이 이 물리적 창조계를 무기한 책임진다.

29:5.7 (329.7) 주(主)기세조직자들은 오르본톤의 다재다능한 힘 중심들 그리고 물리통제자들까지도 참을 수 없는 물리적 환경 아래에서 기능하고 온도를 견딘다. 외부 공간의 이 영역들에서 기능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유형의 계시된 존재들은 단독 메신저들과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뿐이다.

29:5.8 (329.8) [유버사에 있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권한에 의해 활동하는 우주 검열자에 의해 후원되었음]

제 30 편 대우주의 개인성

30:0.1 (330.1)

파라다이스에서 그리고 대우주에서 지금 기능하고 있는 개인성들 그리고 개인성-이외의 실존개체들은 거의 무제한적인 숫자의 살아있는 존재들을 구성한다. 무수한 하위-유형들 그리고 변형들을 말할 것도 없이, 주요 계층들 그리고 유형들의 숫자만으로도 인간의 상상력은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일 것이다. 아무튼, 두 가지 기본 등급의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한 어떤 것—파라다이스 분류에 대한 암시와 유버사 개인성 등록부의 개략—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0:0.2 (330.2)

대우주의 개인성들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전적으로 일관된 분류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그 집단들이 모두 계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집단들을 조직적으로 분류하는 데에 요구되는 더 많은 계시를 다루는 일은 셀 수 없이 많은 추가적 글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한 개념적 확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계시된 이 개념들이 공급하는 자극, 창조적 추측을 일으키는 자극을 다음 천년 동안, 생각하는 필사자들로부터 빼앗을 것이다. 과도한 계시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이 상상력을 억누른다.

제 1 장.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한 파라다이스 분류

30:1.1 (330.3) 파라다이스에서는 살아있는 존재들이 파라다이스 신(神)들에 대한 선천적인 관계와 달성된 관계에 따라 분류된다. 중앙 그리고 초우주들의 광범위한 모임이 있는 동안, 출석한 자들은 종종 기원에 따라 집단을 이룬다: 삼원적 기원에 속한, 또는 삼위일체 달성에 속한 그들; 2원(二元) 기원의 그들; 그리고 단일 기원의 그들.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한 파라다이스 분류를 필사자 마음에게 설명하는 일은 어렵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30:1.2 (330.4) I. 삼원-기원 존재. 계시되거나 계시되지 않았거나, 명칭이 삼위일체화된 존재들의 모든 집단들을 가리키는, 삼위일체화 무리단들과 함께, 삼위일체로서 또는 그러한 신(神)들로서, 파라다이스 신(神) 셋 모두에 의해 창조된 존재들.

30:1.3 (330.5) A. 최극 영.

30:1.4 (330.6) 1. 일곱 주(主) 영.

30:1.5 (330.7) 2. 일곱 최극집행자.

30:1.6 (330.8) 3. 반영 영의 일곱 계층.

30:1.7 (330.9) B. 삼위일체 고정아들.

30:1.8 (330.10) 1. 최극위의 삼위일체화된 비밀.

30:1.9 (330.11) 2. 영원으로 늘 계신이.

30:1.10 (330.12) 3. 옛적으로 늘 계신이.

30:1.11 (330.13) 4. 완전으로 늘 계신이.

30:1.12 (331.1) 5.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

30:1.13 (331.2) 6. 연합으로 늘 계신이.

30:1.14 (331.3) 7. 충심으로 늘 계신이.

30:1.15 (331.4) 8. 지혜의 완전자.

30:1.16 (331.5) 9. 신성한 조연자.

30:1.17 (331.6) 10 우주 검열자.

30:1.18 (331.7) C. 삼위일체-기원 그리고 삼위일체화 존재.

30:1.19 (331.8) 1. 삼위일체 교사 아들.

30:1.20 (331.9) 2.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

30:1.21 (331.10) 3. 하보나 원주민.

30:1.22 (331.11) 4. 파라다이스 시민.

30:1.23 (331.12) 5. 미게시 삼위일체-기원 존재.

30:1.24 (331.13) 6. 미게시 신(神)-삼위일체화 존재.

30:1.25 (331.14) 7. 삼위일체화 달성의 아들.

30:1.26 (331.15) 8. 삼위일체화 선택의 아들.

30:1.27 (331.16) 9. 삼위일체화 완전의 아들.

30:1.28 (331.17) 10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

30:1.29 (331.18) II. 2원(二元)-기원 존재. 파라다이스 신(神)들 중 어느 둘 안에서 기원되거나 또는 파라다이스 신(神)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하강한 존재들 중 어느 둘에 의해 창조된 존재들.

30:1.30 (331.19) A. 하강하는 계층.

30:1.31 (331.20) 1. 창조자 아들.

30:1.32 (331.21) 2. 치안법관 아들.

30:1.33 (331.22) 3. 빛나는 새벽별.

30:1.34 (331.23) 4. 아버지 멜기세덱.

30:1.35 (331.24) 5. 멜기세덱.

30:1.36 (331.25) 6. 보론다덱.

30:1.37 (331.26) 7. 라노난덱.

30:1.38 (331.27) 8. 찬란한 저녁별.

30:1.39 (331.28) 9. 천사장.

30:1.40 (331.29) 10 생명운반자.

30:1.41 (331.30) 11 미게시 우주 도움자.

30:1.42 (331.31) 12 미게시 하느님의 아들.

30:1.43 (331.32) B. 고정된 계층.

30:1.44 (331.33) 1. 아반돈터.

30:1.45 (331.34) 2. 수사시아.

30:1.46 (331.35) 3. 유니비타시아.

30:1.47 (331.36) 4. 스피롱가.

30:1.48 (331.37) 5. 미계시 이원(二元)-기원 존재.

30:1.49 (331.38) C. 상승하는 계층.

30:1.50 (331.39) 1. 조절자-융합 필사자.

30:1.51 (331.40) 2. 아들-융합 필사자.

30:1.52 (331.41) 3. 영-융합 필사자.

30:1.53 (331.42) 4. 전환된 중도자.

30:1.54 (331.43) 5. 미계시 상승자.

30:1.55 (332.1) III. 단일-기원 존재. 파라다이스 신(神)들 중 어느 하나 안에서 기원된 자들 또는 파라다이스 신(神)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하강한 어느 한 존재에 의해 다르게 창조된 존재들.

30:1.56 (332.2) A. 최극 영.

30:1.57 (332.3) 1. 중력 메신저.

30:1.58 (332.4) 2. 하보나 일곱 순환회로 영.

30:1.59 (332.5) 3. 하보나 순환회로 12중 보조자.

30:1.60 (332.6) 4. 반영 영상 도움자.

30:1.61 (332.7) 5. 우주 어머니 영.

30:1.62 (332.8) 6. 칠중 보조 마음-영.

30:1.63 (332.9) 7. 미(未)계시 신(神)-기원 존재.

30:1.64 (332.10) B. 상승하는 계층.

30:1.65 (332.11) 1. 개인성구현된 조절자.

30:1.66 (332.12) 2. 상승하는 물질아들.

30:1.67 (332.13) 3. 진화 세라핌천사.

30:1.68 (332.14) 4. 진화적 케루빔.

30:1.69 (332.15) 5. 미계시 상승자.

30:1.70 (332.16) C. 무한한 영의 가족.

30:1.71 (332.17) 1. 단독 메신저.

30:1.72 (332.18) 2. 우주 순환회로 감독자.

30:1.73 (332.19) 3. 인구조사 지도자.

30:1.74 (332.20) 4. 무한한 영의 개인 도움자.

30:1.75 (332.21) 5. 연합-동료 검열자.

30:1.76 (332.22) 6. 배정된 파수자.

30:1.77 (332.23) 7. 졸업생 안내자.

30:1.78 (332.24) 8. 하보나 봉사원.

30:1.79 (332.25) 9. 우주화해자.

30:1.80 (332.26) 10 모론시아 동행자.

30:1.81 (332.27) 11 초(超)천사.

30:1.82 (332.28) 12 2품천사.

30:1.83 (332.29) 13 3품천사.

30:1.84 (332.30) 14 전(全)천사.

30:1.85 (332.31) 15 세라핌천사.

30:1.86 (332.32) 16 케루빔들 그리고 사노빔.

30:1.87 (332.33) 17 미게시 영-기원 존재.

30:1.88 (332.34) 18 일곱 최극 힘 지도자.

30:1.89 (332.35) 19 최극 힘 중심.

30:1.90 (332.36) 20 주(主)물리통제자.

30:1.91 (332.37) 21 모론시아 힘 감독자.

30:1.92 (332.38) IV. 결국 생겨난 초월의 존재. 그들이 빛과 생명 안에 정착할 때까지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게 대개 그의 기원이 밝혀지지 않는 초월자의 거대한 무리가 파라다이스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초월자들은 창조자들도 아니고 창조체들도 아니며; 그들은 결국 생겨난 신성과 궁극위와 영원의 자녀들이다. 이 “결국 생겨나는 자들”은 유한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다—그들은 아(亞)절대적이고, 아(亞)절대성은 무한성도 아니고 절대성도 아니다.

30:1.93 (333.1) 창조되지 않은 이 비(非) 창조자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게 늘 충성하고 궁극자에게 복종한다. 그들은

개인성 활동의 네 궁극적 차원들에서 실존하고, 각각 일곱 등급의 1,000개 주요 활동 집단들로 이루어지는 12개 광역 부서들 안에 있는 아(亞)절대의 일곱 차원들에서 기능적이다. 결국 생겨난 이 존재들은 다음의 계층들을 포함된다:

30:1.94 (333.2) 1. 주(主)우주 고안건축가.

30:1.95 (333.3) 2. 초월 기록자.

30:1.96 (333.4) 3. 다른 초월자.

30:1.97 (333.5) 4. 1차 결국 생겨난 주(主)기세조직자.

30:1.98 (333.6) 5. 연관-동료 초월 주(主)기세 조직자.

30:1.99 (333.7) 하느님은, 초(超)개인으로서, 결국 생겨나며; 하느님은, 개인으로서, 창조한다; 하느님은, 전(前)개인적 존재로서, 단편화한다; 그리고 그러한 단편 조절자는 아버지로서의 하느님의 어버이다운 행동에 의해, 그 어떤 필사 창조체에게 증여되어 온 개인성의 자유의지적 선택에 따라 물질적이고 필사인 마음 위에 영(靈) 혼(魂)을 진화시킨다.

30:1.100 (333.8) V. 신(神)의 단편화된 실존개체. 살아있는 실존의

이 계층은, 우주 아버지 안에서 생기는데, 생각 조절자들에 의해 가장 잘 예시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존개체들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전(前)개인적 실체의 유일한 단편들이 결코 아니다. 조절자-이외의 단편들의 기능들은 다양하고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조절자 또는 그러한 다른 단편과의 결합은 그 창조체를 아버지-융합 존재가 되게 한다.

30:1.101 (333.9) 아버지 단편들에게는 전혀 비교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전(前)마음 영의 단편들은 여기에 기록될 것이다. 그러한 실존개체들은 조절자들과 매우 크게 다르며; 그들은 영성별에 그렇게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중력 순환회로들을 그렇게 횡단하지도 않는다; 또한 그들은 육신 속에서의 삶 동안 필사 창조체들 속에 거주하지도 않는다. 조절자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 개념에서 보면 그들은 전(前)개인적은 아니지만, 전(前)마음 영의 그러한 단편들은 생존되는 일정한 필사자들에게 증여되고, 그러한 결합은 조절자-융합 필사자들에 대비하여 그들을 영-융합 필사자들이 되게 한다.

30:1.102 (333.10) 설명하기 더 어려운 것은 창조자 아들의 개별존재화된 영인데, 그것과의 연합은 창조체를 아들-융합 필사자가 되게 한다. 신(神)의 또 다른 단편들이 있다.

30:1.103 (333.11) VI. 초(超)개인적 존재. 개인적이-아닌 신성한 기원을 갖는 그리고 우주들의 우주 안에서 다양하게 봉사하는 광대한 무리가 있다. 이 존재들 중 일부는 아들의 파라다이스 세계들에 거주 한다; 나머지는, 영원한 아들의 초개인적 대표자들처럼,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된다. 그들은 대체로 이 글들 안에서 언급되지 않으며, 개인적 창조체들에게 그들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일은 아주 무익할 것이다.

30:1.104 (333.12) VII. 분류되지 않고 계시되지 않은 계층. 개인적이든 아니든 모든 존재들을 현재 우주 시대에 속한 분류들 안에 넣는 것은 현재 우주 시대 동안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주들이 이 글들 안에 모두 계시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수많은 계층들이 이 목록 표에서 제외되어 왔다. 다음을 고려해 보라:

30:1.105 (333.13) 1. 우주 운명 완료자.

30:1.106 (333.14) 2. 분별된 궁극자 대관.

30:1.107 (334.1) 3. 최극자의 분별불가 감독자.

30:1.108 (334.2) 4.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미(未)계시 창조 대리자

30:1.109 (334.3) 5. 파라다이스 장엄자.

30:1.110 (334.4) 6. 장엄자의 이름없는 연락 반영자.

30:1.111 (334.5) 7. 지역우주들의 아(亞)중간 계층.

30:1.112 (334.6) 이들 중에서는 아무도 여기에 밝혀진 것처럼 파라다이스 분류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이 계층들이 함께 열거된 목록 표에 아무런 특별한 의의(意義)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분류되지 않은 소수이다; 너희는 계시되지 않은 다수에 대해 아직 배운 바 없다.

30:1.113 (334.7) 영들 즉: 영 실존개체들, 영 현존들, 개인적 영들, 전(前)개인적 영들, 초(超)개인적 영들, 영 실존들, 영 개인성들이 존재하지만—필사자 언어도 인간 지성도 충분치 못하다. 아무튼 우리는 “순수 마음”의 개인성들이 없음을 단언할 수 있다; 어떤 실존개체도 영이신 하느님에

의해 그것을 자질로서 부여받지 않으면 개인성을 가질 수 없다. 영적 에너지 또는 물리적 에너지와 연관되지 않은 어떤 마음 실존개체이든지 개인성이 아니다. 그러나 마음을 소유한 영 개인성들이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서, 영을 소유한 마음 개인성들이 있다. 장엄자와 그의 동료들은 마음-지배 존재들에 대한 상당히 좋은 예이지만,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더 나은 실례(實例)들이 있다. 마음 개인성들과 같은 전적으로 계시되지 않은 계층들도 있지만, 그들은 항상 연관된 영이다. 계시되지 않은 일정한 다른 창조체들은 마음적-그리고 물리적-에너지 개인성들이라고 명명될만한 어떤 것들이다. 이 존재 유형은 영 중력에 반응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아버지의 순환회로 안에 있는, 참된 개인성이다.

30:1.114 (334.8) 이 글들은, 시간의 우주들 안에서 그리고 영원의 중앙우주 안에서 떼를 지어 모여서 ,봉사하고 살아가며 경배하는, 살아있는 창조체들과 창조자들과 결국 생겨나는 자들 그리고 여전히-다르게-실존하는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를 속속들이 규명하는 일을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할 수 없다. 너희 필사자들은 개인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성구현된 존재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아(亞)절대화된 존재를 어떻게 너희에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제 2 장. 유버사 개인성 등록

30:2.1 (334.9) 살아있는 존재들의 신성한 가족은 크게 일곱
부서들 안에서 유버사에 등록되어 있다:

30:2.2 (334.10) 1. 파라다이스 신(神).

30:2.3 (334.11) 2. 최극 영.

30:2.4 (334.12) 3. 삼위일체-기원 존재.

30:2.5 (334.13) 4. 하느님의 아들.

30:2.6 (334.14) 5. 무한한 영의 개인성.

30:2.7 (334.15) 6. 우주 힘 지도자.

30:2.8 (334.16) 7. 영구시민신분의 무리단.

30:2.9 (334.17) 의지 창조체들인 이 집단들은 수많은 등급과 작은
소분과로 나뉘어 있다. 대우주의 그 개인성들에 대한 이
분류의 제시는 이 글들에서 계시되어 온 지능 존재들의 그

계층들을 진술하는 일에 주로 관여되어 있는데, 그들 대부분은 파라다이스를 향한 그들의 진보적 상승에 있어서 시간의 필사자들의 상승하는 체험 안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다음의 목록은 필사자 상승 기획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광대한 계층의 우주 존재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30:2.10 (335.1) I. 파라다이스 신(神).

30:2.11 (335.2) 1. 우주 아버지.

30:2.12 (335.3) 2. 영원한 아들.

30:2.13 (335.4) 3. 무한한 영.

30:2.14 (335.5) II. 최극 영.

30:2.15 (335.6) 1. 일곱 주(主) 영.

30:2.16 (335.7) 2. 일곱 최극집행자.

30:2.17 (335.8) 3. 반영 영의 일곱 집단.

30:2.18 (335.9) 4. 반영 영상 도움자.

30:2.19 (335.10) 5. 일곱 순환회로 영.

30:2.20 (335.11) 6. 지역우주 창조 영.

30:2.21 (335.12) 7. 보조 마음-영.

30:2.22 (335.13) III. 삼위일체-기원 존재.

30:2.23 (335.14) 1. 최극위의 삼위일체화된 비밀.

30:2.24 (335.15) 2. 영원으로 늘 계신이.

30:2.25 (335.16) 3. 옛적으로 늘 계신이.

30:2.26 (335.17) 4. 완전으로 늘 계신이.

30:2.27 (335.18) 5.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

30:2.28 (335.19) 6. 연합으로 늘 계신이.

30:2.29 (335.20) 7. 충심으로 늘 계신이.

30:2.30 (335.21) 8. 삼위일체 교사 아들.

30:2.31 (335.22) 9. 지혜의 완전자.

30:2.32 (335.23) 10 신성한 조연자.

30:2.33 (335.24) 11 우주 검열자.

30:2.34 (335.25) 12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

30:2.35 (335.26) 13 하보나 원주민.

30:2.36 (335.27) 14 파라다이스 시민.

30:2.37 (335.28) IV. 하느님의 아들.

30:2.38 (335.29) A. 하강하는 아들.

30:2.39 (335.30) 1. 창조자 아들들—미가엘.

30:2.40 (335.31) 2. 치안법관 아들들—아보날.

30:2.41 (335.32) 3.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데이날.

30:2.42 (335.33) 4. 멜기세덱 아들.

30:2.43 (335.34) 5. 보론다덱 아들.

30:2.44 (335.35) 6. 라노난덱 아들.

30:2.45 (335.36) 7. 생명운반자 아들.

30:2.46 (335.37) B. 상승하는 아들.

30:2.47 (335.38) 1. 아버지-융합 필사자.

30:2.48 (335.39) 2. 아들-융합 필사자.

30:2.49 (335.40) 3. 영-융합 필사자.

30:2.50 (335.41) 4. 진화 세라핌천사.

30:2.51 (335.42) 5. 상승하는 물질아들.

30:2.52 (335.43) 6. 변형된 중도자.

30:2.53 (335.44) 7. 개인성구현된 조절자.

30:2.54 (336.1) C. 삼위일체화 아들.

30:2.55 (336.2) 1. 막강한 메신저.

30:2.56 (336.3) 2. 높은 권한자.

30:2.57 (336.4) 3. 이름-번호 없는 자.

30:2.58 (336.5) 4. 삼위일체화 보호관리자.

30:2.59 (336.6) 5. 삼위일체화 대사.

30:2.60 (336.7) 6. 천상의 수호자.

30:2.61 (336.8) 7. 높은 아들 보좌관.

30:2.62 (336.9) 8. 상승자-삼위일체화 아들.

30:2.63 (336.10) 9. 파라다이스-하보나-삼위일체화 아들.

30:2.64 (336.11) 10 삼위일체화 운명의 아들.

30:2.65 (336.12) V. 무한한 영의 개인성.

30:2.66 (336.13) A. 무한한 영의 높은 개인성.

30:2.67 (336.14) 1. 단독 메신저.

30:2.68 (336.15) 2. 우주 순환회로 감독자.

30:2.69 (336.16) 3. 인구조사 지도자.

30:2.70 (336.17) 4. 무한한 영의 개인 도움자.

30:2.71 (336.18) 5. 연관 동료 검열자.

30:2.72 (336.19) 6. 배정된 파수자.

30:2.73 (336.20) 7. 졸업생 안내자.

30:2.74 (336.21) B. 공간의 메신저 무리.

30:2.75 (336.22) 1. 하보나 봉사원.

30:2.76 (336.23) 2. 우주적 화해자.

30:2.77 (336.24) 3. 기술 충고자.

30:2.78 (336.25) 4. 파라다이스에 있는 기록보호관리자.

30:2.79 (336.26) 5. 천상의 기록자.

30:2.80 (336.27) 6. 모론시아 동행자.

30:2.81 (336.28) 7. 파라다이스 동행자.

30:2.82 (336.29) C. 사명활동 영.

30:2.83 (336.30) 1. 초(超)천사.

30:2.84 (336.31) 2. 2품천사.

30:2.85 (336.32) 3. 3품천사.

30:2.86 (336.33) 4. 전(全)천사.

30:2.87 (336.34) 5. 세라핌천사.

30:2.88 (336.35) 6. 케루빔들 그리고 사노빔.

30:2.89 (336.36) 7. 중도자.

30:2.90 (336.37) VI. 우주 힘 지도자.

30:2.91 (336.38) A. 일곱 최극 힘 지도자.

30:2.92 (336.39) B. 최극 힘 중심.

30:2.93 (336.40) 1. 최극 중앙 감독관.

30:2.94 (336.41) 2. 하보나 중심.

30:2.95 (336.42) 3. 초우주 중심.

30:2.96 (336.43) 4. 지역우주 중심.

30:2.97 (336.44) 5. 별자리 중심.

30:2.98 (336.45) 6. 체계중심.

30:2.99 (336.46) 7. 분류되지 않은 중심.

30:2.100 (337.1) C. 주(主)물리통제자.

30:2.101 (337.2) 1. 연관-동료 힘 지도자.

30:2.102 (337.3) 2. 기계적 통제자.

30:2.103 (337.4) 3. 에너지 변환자.

30:2.104 (337.5) 4. 에너지 전송자.

30:2.105 (337.6) 5. 1차 연관자.

30:2.106 (337.7) 6. 2차 분리자.

30:2.107 (337.8) 7. 후란달랑크 그리고 크로놀덱.

30:2.108 (337.9) D. 모론시아 힘 감독자.

30:2.109 (337.10) 1. 순환회로 규제자.

30:2.110 (337.11) 2. 체계 조화-협동자.

30:2.111 (337.12) 3. 행성 보호관리자.

30:2.112 (337.13) 4. 병합된 통제자.

30:2.113 (337.14) 5. 연락 안정자.

30:2.114 (337.15) 6. 선택 분류자.

30:2.115 (337.16) 7. 연관-동료 등록자.

30:2.116 (337.17) VII. 영구 시민신분의 무리단.

30:2.117 (337.18) 1. 행성 중도자.

30:2.118 (337.19) 2. 체계들의 아담의 아들.

30:2.119 (337.20) 3. 별자리 유니비타시아.

30:2.120 (337.21) 4. 지역우주 수사시아.

30:2.121 (337.22) 5. 지역우주들의 영-융합 필사자.

30:2.122 (337.23) 6. 초우주 아반돈터.

30:2.123 (337.24) 7. 초우주들의 아들-융합 필사자.

30:2.124 (337.25) 8. 하보나 원주민.

30:2.125 (337.26) 9. 영의 파라다이스 구체 원주민.

30:2.126 (337.27) 10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구체 원주민.

30:2.127 (337.28) 11 파라다이스의 창조된 시민.

30:2.128 (337.29) 12 파라다이스의 조절자-융합 필사자 시민.

30:2.129 (337.30) 그것들이 유버사의 본부 세계에 있는 기록에 속해 있듯이 이것은 우주들의 개인성에 대한 실용적 분류이다.

30:2.130 (337.31) 혼합 개인성 집단. 유버사에는 수많은 추가적 집단들의 지능 존재들이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들 역시 대우주의 조직과 관리-행정에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한 계층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혼합 개인성 집단들이 있다:

30:2.131 (337.32) A. 최종의 파라다이스 무리단.

30:2.132 (337.33) 1. 필사자 최종자 무리단.

30:2.133 (337.34) 2. 파라다이스 최종자 무리단.

30:2.134 (337.35) 3. 삼위일체화 최종자 무리단.

30:2.135 (337.36) 4. 공동 삼위일체화 최종자 무리단.

30:2.136 (337.37) 5. 하보나 최종자 무리단.

30:2.137 (337.38) 6. 초월적 최종자 무리단.

30:2.138 (337.39) 7. 계시되지 않은 운명의 아들들의 무리단.

30:2.139 (337.40) 최종의 필사자 무리단은 다음에 있는 그리고 1부의 마지막에 있는 글에서 취급된다.

30:2.140 (338.1) B. 우주 도움자.

30:2.141 (338.2) 1. 빛나는 새벽별.

30:2.142 (338.3) 2. 찬란한 저녁별.

30:2.143 (338.4) 3. 천사장.

30:2.144 (338.5) 4. 지고(至高)보좌관.

30:2.145 (338.6) 5. 높은 위원.

30:2.146 (338.7) 6. 천상의 감독자.

30:2.147 (338.8) 7. 맨션세계 교사.

30:2.148 (338.9) 지역우주와 초우주 둘 모두의 모든 본부 세계들에서는, 지역우주 통치자들인 창조자 아들들을 위한 특별한 임무에 참여하고 있는 이 존재들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이 우주 도움자들을 유버사에서 맞아들이지만, 우리는 그들에 대한 관할권은 없다. 그러한 밀사(密使)들은 창조자 아들들의 권한 아래에서 그들의 일을 추진하고 그들의 관찰 업무를 이행한다. 그들의 활동은 너희 지역우주에 관한 이야기에서 더 충분히 설명된다.

30:2.149 (338.10) C. 일곱 우대거류민단.

30:2.150 (338.11) 1. 별 연구자.

30:2.151 (338.12) 2. 천상의 거장.

30:2.152 (338.13) 3. 복귀 지도자.

30:2.153 (338.14) 4. 연장-학교 강사.

30:2.154 (338.15) 5. 다양한 예비무리단.

30:2.155 (338.16) 6. 학생 방문자.

30:2.156 (338.17) 7. 상승하는 순례자.

30:2.157 (338.18) 이 일곱 집단의 존재들은 지역체계들로부터 초우주들의 수도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후자의, 모든 본부 세계들에서 그렇게 조직되고 통치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일곱 초우주의 수도들은 거의 모든 등급과 계층의 지능 존재들이 모이는 장소들이다. 파라다이스-하보나 주민들의 수많은 집단들은 제외하고, 실존하는 각 위상의 의지적 창조체들이 관찰되고 연구될 수 있다.

제 3 장. 우대거류민단

30:3.1 (338.19) 일곱 우대거류민단은 그들의 임무 추진에 그리고 그들의 특별한 과제를 수행함에 참여하는 동안 비교적 긴 또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고안건축 구체들 위에 머물러 있다. 그들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30:3.2 (338.20) 1. 별 연구자들은, 천상의 천문학자들인데, 유버사와 비슷한 구체들 위에서 활동할 것을 선택하며 그것은 특별히 건축된 그러한 세계들이 그들의 관찰과 계산을 위해 현저하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유버사는 이 거류민단의 활동에 유리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중앙에 위치한 때문만이 아니라, 에너지 흐름들을 교란시킬 만큼 가까운 곳에 거대한 살아있거나 죽은 태양들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연구자들은 초우주의 관련사들과 어떤 면에서도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손님들일 뿐이다.

30:3.3 (338.21) 유버사의 천문상의 거류민단은 근처에 있는 여러 영역들로부터, 중앙우주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놀라시아덱으로부터 오는 개별존재들을 포함한다. 어떤 우주의 어떤 체계 안에 있는 어떤 세계 위에 있는 어떤 존재든지 별 연구자가 될 수 있는데, 천상의 천문학자들의

어떤 무리단에 가담하기를 열망할 수 있다. 유일한 필요조건들은: 계속적인 삶을 사는 것과, 공간의 세계들에 대한, 특별히 진화와 통제의 물리적 법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다. 별 연구자들은 이 무리단 안에서 영구적으로 봉사하도록 요구되지는 않지만, 이 집단에 받아들여진 어느 누구도 유버사 시간으로 1,000년 안에 그만 둘 수 없다.

30:3.4 (339.1) 유버사의 별-관찰자 거류민단은 현재 백만 명에 이른다. 일부가 비교적 긴 기간 동안 머물기는 하지만, 이 천문학자들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 그들은 수많은 기계적 도구들과 물리적 장비들의 도움을 얻어 그들의 일을 수행 한다; 그들은 또한 단독 메신저들 그리고 다른 영 탐험가들에 의해서도 크게 도움을 받는다. 이 천상의 천문학자들은 별 연구와 공간 측량을 하는 그들의 활동에 있어서 살아있는 에너지 변환자들 그리고 전송자들을,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반영 개인성들을 계속 사용한다. 그들은 공간 물질과 에너지 현시활동들의 모든 형체들 그리고 위상들 모두를 연구 한다; 전체 공간 안에 있는 어떤 것도 그들의 조사를 벗어날 수 없다.

30:3.5 (339.2) 비슷한 천문학자 거류민단이 그 초우주의 구역
본부들에서만 아니라 지역우주들 그리고 그들의 행정-
관리적 하위 부서들의 고안건축의 수도들에서도 발견되게
되어 있다. 파라다이스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식은
선천적이지 않는다; 물리적 우주에 대한 납득은 주로
관찰과 연구에 의존한다.

30:3.6 (339.3) 2. 천상의 거장은 일곱 초우주들에 두루 봉사한다.
상승하는 인간들은 이 기능공들이 더 충만하게
논의되어지는 것과 관련된 그 지역우주의 모론시아 생애
안에서 이 집단들과 처음 접촉을 갖는다.

30:3.7 (339.4) 3. 복귀 지도자들은 이완-휴식과 유머를
증진시키는—과거 기억들로의 복귀—자들이다. 그들은
특별히 모론시아 변형 그리고 영 체험의 초기 위상들 동안,
필사자 진보의 상승하는 기획의 실천적 작동에 있어서 큰
봉사를 한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지역우주에서의
필사자 생애에 대한 글에 속한다.

30:3.8 (339.5) 4. 연장-학교 강사. 상승하는 생애 중 바로
다음으로 높은 거주 세계는 바로 아래 세계에 강력한 교사
무리단, 그 구체의 진보하는 거주자들을 위한 일종의

예비학교를 항상 유지 한다; 이것은 시간의 순례자들을 진보시키기 위한 상승 계획의 한 위상이다. 이 학교들은, 교습과 시험에 대한 그들의 방법들은, 유란시아에서 행위로 이끌어 보려고 시도하는 어떤 것과도 전혀 비슷하지 않다.

30:3.9 (339.6) 필사자 진보의 상승 계획 전체가 새로운 진리와 체험을 획득하자마자 곧 바로 다른 존재들에게 내어 주는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특징되어진다. 너희는 진보의 눈금 안에서 바로 너희 뒤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 선생으로 봉사함으로써 파라다이스 달성의 긴 학교를 통과하는 너희의 길을 간다.

30:3.10 (339.7) 5. 다양한 예비무리단. 우리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에 있지 않은 광대한 존재의 예비자들이 예비무리단 거류민단으로서 유버사에 동원되어 있다. 유버사에는 이 거류민단이 70개의 1차 부서로 나뉘어 있고, 이 비범한 개인성들과 어느 기간을 함께 보내도록 허용되는 것은 하나의 자유 교육이다. 비슷한 일반 예비자들이 구원자별 그리고 다른 우주 수도들 위에 유지되고 있다; 그들은 그들

각각의 집단 지도자들의 요구에 따라 활동적 봉사
파견된다.

30:3.11 (339.8) 6. 학생 방문자. 우주 전체로부터 천상의
방문자들의 계속적인 흐름이 다양한 본부 세계들을 통해
부어진다. 개별존재로서 그리고 계층들로서, 다양한 이
유형의 존재들은 관찰자들과 교환 학생들 그리고 학생
조력자들로 우리들에게 떼를 지어 온다. 현재 유버사에는,
이 우대거류민단 안에 10억 명 이상의 개인들이 있다. 이
방문자들 중 일부는 하루를 머물 수 있고, 나머지는 1년을
머물 수 있는데, 모두 그들의 임무의 본질에 따라 다르다.
이 거류민단은 창조자 개인성들과 모론시아 필사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계층의 우주 존재들을 포함한다.

30:3.12 (340.1) 모론시아 필사자들은 그들이 기원된 그
지역우주의 경계선 안에서만 학생 방문자들이다. 그들은
그들이 영 지위를 얻은 이후에만 초우주 수용력 안에서
방문할 수 있다. 우리 방문자 거류민단 중 꼭 절반이 “단기
체류자들”, 다른 곳으로 가는 도중에 오르본톤 수도를
방문하기 위하여 멈춘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개인성들은 우주 임무를 수행할 수 있거나, 또는 어떤

기간의 휴식—임무로부터의 해방—을 누릴 수 있다. 우주
내부를 여행하고 관찰하는 특권은 상승하는 전체
존재들의 생애의 한 부분이다. 새로운 세계들과 사람들을
보고 여행하기를 원하는 인간은 지역, 초-, 그리고
중앙우주를 통하여 파라다이스를 향하는 길고도 다사한
상승 기간 동안 충만하게 만족을 누릴 것이다.

30:3.13 (340.2) 7. 상승하는 순례자. 상승하는 순례자들이 그들의
파라다이스 진보와 관련하여 다양한 봉사에 배정될 때,
그들은 다양한 본부 구체들에서 우대거류민단으로서
산다. 초우주의 이곳저곳에서 기능하는 동안, 그러한
집단들은 주로 자아-관리한다. 그들은 모든 계층의 진화적
필사자들과 그들의 상승하는 연관-동료들을 포함하는
영원히-이동하는 거류민단이다.

제 4 장. 상승하는 필사자

30:4.1 (340.3) 파라다이스를 향한 진보적 상승의 자격을 얻을 때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 생존자들이 상승하는 순례자들로
명명되는 반면, 이 진화적 창조체들은 상승하는 우주 생애
중 다음과 같은 일곱 단계들에 대한 개요를 우리가

여기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이 글들 안에 들어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장소를 차지 한다:

30:4.2 (340.4) 1. 행성 필사자.

30:4.3 (340.5) 2. 잠자는 생존자.

30:4.4 (340.6) 3. 맨션세계 학생.

30:4.5 (340.7) 4. 모론시아 진보자.

30:4.6 (340.8) 5. 초우주 피보호자.

30:4.7 (340.9) 6. 하보나 순례자.

30:4.8 (340.10) 7. 파라다이스 도착자.

30:4.9 (340.11) 다음의 이야기는 조절자-내주 필사자의 우주 생애를 보여준다. 아들-융합 그리고 영-융합 필사자들은 이 생애들의 여러 부분들을 공유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조절자-융합 필사자들에 속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하기로 선택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운명이 유란시아의 인간 종족들 전체에게 예상되기 때문이다.

30:4.10 (340.12)

1. 행성 필사자. 필사자들은 모두 상승 잠재를 가진 동물-기원 진화적 존재들이다. 기원과 본성 그리고 운명에 있어서, 다양한 이 집단들 그리고 유형들의 인간 존재들은 유란시아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는 않다. 각 세계의 인간 종족들은 하느님의 아들들의 동일한 사명활동을 받아들이고 시간의 사명활동 영들의 현존을 향유한다. 자연적인 죽음 이후에, 모든 유형의 상승자들은 맨션세계들에서 하나의 모론시아 가족으로서 형제우애관계를 가진다.

30:4.11 (341.1)

2. 잠자는 생존자. 개인적 운명의 수호자들의 보호관찰 안에 있는, 생존 지위의 모든 필사자들은, 자연적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맨션세계에서 세번째 기간으로 개인성구현한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능 숙달과 영성의 자질 차원이 개인 수호자들을 가질 차원에 달성할 수 없다고 인가된 필사자들은 즉시 그리고 직접 그렇게 맨션세계들로 갈 수는 없다. 생존되는 그러한 혼들은 새로운 신(新)시대, 영역을 판결하고 그 시대의 출석점호를 부르기 위하여 하느님의 아들이 오는, 새로운 섭리시대의 심판 날까지 무의식적 수면 속에서 쉬어야만 하며, 이것은 네바돈 전체에 두루 일반적 실천 관행이다.

미가엘 그리스도는 지구상에서의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고 높은 곳으로 상승하였을 때, 그에 관하여 “그는 큰 무리의 사로잡힌 자들을 인도하였다”고 언급되었다. 그리고 이 사로잡힌 자들은 아담의 시대 이후 유란시아에서의 주(主)의 부활 때까지 잠자고 있던 생존자들이었다.

30:4.12 (341.2) 시간의 경과를 잠자는 필사자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으며; 그들은 온통 무의식 속에 있고 그들의 휴식기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한 시대가 끝나면서 개인성이 재조립될 때, 5,0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그들은 5일을 쉰 자들과 전혀 차이 없이 다시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 시간 지연을 제외하고, 이 생존자들은 비교적 길든지 또는 짧든지 죽음의 수면상태를 격지 않는 그들과 똑같이 상승 체제를 통과해 지나간다.

30:4.13 (341.3) 세상 순례자들의 이들 섭리시대적 학급은 지역우주의 일에서 모론시아 집단 활동을 위해 활용된다. 그러한 거대한 집단을 동원하는 데는 큰 이점이 있다; 오랜 기간의 효력적인 봉사를 위하여 그들을 그렇게 함께 둔다.

30:4.14 (341.4) 3. 맨션세계 학생. 맨션세계들에서 다시 깨어나는 생존되는 모든 필사자들이 이 계통에 속한다.

필사 육신의 물리적 몸체는 잠자는 생존자의 재조립의 일부분이 아니며; 물리적 몸체는 먼지로 돌아간다. 임무배정의 세라핌천사들이 새로운 몸체, 모론시아 형체를 후원하는데, 그것은 불멸 혼을 위한 그리고 돌아온 조절자의 내주를 위한 새로운 생명 매체이다. 그 조절자는 잠자는 생존자의 마음의 영(靈) 성적표에 대한 보호관리자다. 배정된 세라핌천사는 생존되는 정체성—불멸 혼—을 그것이 진화를 마칠 때까지 보존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이 두 존재들, 조절자와 세라핌천사는 그들의 개인성 위탁물들을 재(再)연합시킬 때, 그 새로운 개별존재는 옛 개인성의 부활, 그 혼의 진화하는 모론시아 정체성이 생존되는 것이다. 혼과 조절자의 그러한 재결합은 부활, 개인성 요소들의 재조립이라고 불리기에 적합하지만; 이것도 생존되는 개인성의 재출현을 전반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활동행위의 사실들을 아마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지만, 만일 너희가 필사자 생존의 계획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너희는 언젠가 그 진리를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30:4.16 (341.6) 진보적 훈련의 일곱 세계들 위에 필사자를 처음으로 붙잡아두는 그 계획은 오르본톤 안에서 거의 보편적인 일이다. 거주민이 사는 약 1,000개 행성들로 구성된 각 지역체계마다 일곱 맨션세계들이 있는데, 대개 그 체계 수도의 위성들 또는 하위-위성들이다. 그것들은 상승하는 필사자들 대부분을 받아들이기 위한 세계들이다.

30:4.17 (341.7) 때로는 거주민이 사는 모든 훈련 세계들이 우주 "저택들"이라고 불리며, 그것은 예수가: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고 말하였을 때 암시한 그러한 세계들에 대한 것이다. 이 이후로 계속, 맨션세계들과 같은 주어진 집단의 구체들 안에서, 상승자들은 한 구체로부터 다음 구체로 한 삶 위상으로부터 다음 위상으로 개별적으로 진보하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항상 학급을 형성하여 한 우주 연구 단계로부터 다음 단계로 진보하게 될 것이다.

30:4.18 (342.1) 4. 모론시아 진보자. 맨션세계들로부터 위를 향하여 체계와 별자리와 우주의 구체들을 통과하기까지, 필사자들은 모론시아 진보자들로 분류된다; 그들은

필사자 상승의 변환 구체들을 지나간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모론시아 세계들 중 비교적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진보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선생들과 관계적-연합하여 그리고 그들보다 더 진보되거나 그들의 선배인 형제들과 함께 수를 셀 수 없는 배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30:4.19 (342.2) 모론시아 진보는 지성과 영과 개인성 형태의 계속적인 향상에 속한다. 생존자들은 여전히 3가지-본성을-가진 존재들이다. 모론시아 체험 전체에 두루 그들은 그 지역우주의 피보호자들이다. 초우주의 체제는 영 생애가 시작될 때까지 기능하지 않는다.

30:4.20 (342.3) 필사자들은 그들이 초우주의 소구역들에 속한 접수 세계들을 향하여 지역우주 본부를 떠나기 직전에 실제 영 정체성을 획득한다. 마지막 모론시아 단계로부터 첫 번째 또는 가장 낮은 영 지위로 지나가는 것은 미미한 과도기에 불과하다. 마음과 개인성과 성격은 그러한 진보에 의해서는 바뀌지 않는다; 형태만 변화될 뿐이다. 그러나 영 형태는 모론시아 몸체와 똑같이 실제적이고, 똑같이 식별 가능하다.

30:4.21 (342.4) 그들이 태어난 지역우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초우주 세계들을 향해 떠나기 전에, 시간의 필사자들은 창조자 아들과 지역우주 어머니 영으로부터 영 확인을 받는 자들이 된다. 이때부터 계속, 상승하는 그 필사자의 지위가 언제까지나 정착된다. 초우주 피보호자들은 타락된 것으로 알려진 적이 전혀 없었다. 상승하는 세라핌천사들 역시 지역우주들로부터 떠날 때 천사 신분에서 승진한다.

30:4.22 (342.5) 5. 초우주 피보호자. 초우주들의 훈련하는 세계들에 도착하는 모든 상승자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피보호자들이 된다; 그들은 지역우주의 모론시아 삶을 다 지나갔고 이제는 공인된 영들이다. 어린 영들로서 그들은 훈련과 문화의 초우주 체계의 상승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소구역들에 속한 받아들이는 구체들로부터, 10개의 대구역들에 속한 연구 세계들을 거쳐, 초우주 본부의 비교적 높은 문화적 구체들까지 이른다.

30:4.23 (342.6) 그들이 영 진보의 소구역과 대구역 그리고 초우주 본부에 머무는 것에 따라 세 가지 계층의 학생 영들이

존재한다. 모론시아 상승자들이 지역우주의 세계들에서 연구하고 활동했던 것처럼, 영 상승자들은 그들이 지혜의 체험적 원천들에서 흡수해 왔던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는 실천 관행을 하는 동안 새로운 세계들을 계속 숙지해 간다. 그러나 초우주 생애에 있어서 영 존재로서 학교에 가는 일은 사람의 물질적 마음이 상상할 수 있는 영역에 전에 들어갔던 어떤 경우와도 전혀 틀리다.

30:4.24 (342.7) 하보나를 향하여 그 초우주를 떠나기 전에, 이 상승하는 영들은 그들이 지역우주 감독안에서의 그들의 모론시아 체험 기간 동안 받아들였던 것과 똑같은 과정을 초우주 운영 속에서 받아들인다. 영 필사자들이 하보나에 도착하게 전에, 그들의 주요 연구는, 독점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지역우주와 초우주 관리-행정을 숙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 전체에 대한 이유가 지금은 충분히 뚜렷하지 않지만, 그러한 훈련이 최종의 무리단의 일원들로서 가능한 그들의 미래 운명을 고려함에 있어서 현명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30:4.25 (342.8) 초우주 체제는 상승하는 모든 필사자들에게 똑같지 않다. 그들은 동일한 일반 교육을 받아들이지만,

특별한 집단들과 학급들이 특별 안내 과정에 두루 그리고 특별한 훈련 과정에 두루 운영된다.

30:4.26 (343.1) 6. 하보나 순례자. 영 발전이 완성되면, 심지어 충만하지 않더라도, 생존되는 필사자들은 하보나, 진화적 영들의 안식처를 향한 긴 비행을 위해 준비한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살과 피의 창조체이었다; 지역우주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너희가 모론시아 존재였으며; 초우주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진화하는 영이었다; 너희가 하보나의 접수 세계들에 도착하면 너희의 영적 교육이 실체 안에서 그리고 진지함 안에서 시작된다; 너희의 파라다이스에서의 결국 생겨나는 모습은 완전하게 된 영이 될 것이다.

30:4.27 (343.2) 초우주 본부로부터 하보나 접수 구체들을 향한 그 여행은 항상 홀로 하게 된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의 학급이나 집단 지도가 관리-운영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들의 기술적 그리고 관리-행정적 훈련을 마쳤다. 이제는 너희의 개인적 교육, 너희의 개별적 영적 훈련이 시작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하보나에

두루, 훈련은 개인적이고 본질적으로 삼중적인데 즉: 지적, 영적, 그리고 체험적이다

30:4.28 (343.3) 너희의 하보나 생애의 첫 활동은 길고도 안전한 여행에 대하여 너희의 운송 2품천사를 알아보고 감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초기 하보나 활동들을 후원하게 될 그 존재들 앞으로 나아간다.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의 도착을 등록하고 너희의 지역우주의 창조자 아들, 너희의 아들관계의 생애를 가능하게 만든 우주의 아버지에게 보낼 감사와 찬미의 메시지를 준비한다. 이것이 하보나 도착의 정규 절차들을 완결 지을 것이다; 그 후로 너희는 자유로운 관찰을 위한 긴 기간의 휴양을 허락 받으며, 이것은 긴 상승 체험에서의 너희 친구들과 동료들 그리고 연관-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너희는 너희가 유버사를 떠난 이후로 너희 동반자 순례자들 중 누가 하보나를 향하여 떠났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방송을 참고할 수 있다.

30:4.29 (343.4) 하보나의 접수 세계들에 너희가 도착하였다는 그 사실이 너희 지역우주의 본부에 정식으로 전달될 것이고,

세라핌천사들이 가게 될 어느 곳이든지 너희의 세라핌천사 수호자들에게 직접 전해질 것이다.

30:4.30 (343.5) 상승한 필사자들은 공간의 진화 세계들의 관련사들에 있어서 속속들이 훈련을 마쳤으며; 이제 그들은 창조된 완전의 구체들과 길고도 유익한 접촉을 시작한다. 어떤 미래 업무에 대한 준비가 이 병합되고 독특하고 비범한 체험에 의해 얼마나 많이 잘 제공되는지! 그러나 나는 하보나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할 수 없으며; 너희는 그것들의 영광을 깊이 감상하려면 그리고 그것들의 웅장함을 납득하려면 너희가 이 세계들을 보지 않으면 안된다.

30:4.31 (343.6) 7. 파라다이스 도착자. 거주자의 지위를 가지고 파라다이스에 도착하면, 너희는 신성과 아(亞)절대성에 있어서의 진보적 과정을 시작한다. 파라다이스에 너희가 거주한다는 것은 너희가 하느님을 이미 발견한 것을 의미하고, 너희가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에 소집되었음을 의미한다. 대우주의 모든 창조체들 중에서, 아버지 결합을 이룬 자들만이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에 소집된다. 오직 그러한 개별존재들만이 최종자 서약을 한다. 파라다이스

완전 또는 달성에 속하는 다른 존재들은 일시적으로 이 최종 무리단에 배정될 수는 있지만,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진화적이고 완전해진 고참 존재들로 구성된 모이는 이 무리의 알려지지 않고 계시되지 않은 사명에 영구적으로 배정된 것이 아니다.

30:4.32 (343.7) 파라다이스 도착자들에게는 어떤 기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지며, 그 후에 그들은 1차 초(超)천사들로 구성된 일곱 집단들과 관계적-연합을 이루기 시작한다. 그들은 그들이 경배 지휘-안내자들과 그들의 과정을 완결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멀리-퍼지는 창조계의 끝까지 관찰하고 협동하는 봉사에 최종자로서 배정되었을 때 파라다이스 졸업생들로 명명된다. 그들이 빛과 생명 안에 정착된 세계들에서 여러 수용능력으로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최종자의 필사자 무리단이 아직 특별하거나 정해진 일자리가 없는 듯하다..

30:4.33 (344.1) 만일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에 대한 어떤 미래적 또는 계시되지 않은 운명이 존재할 수 없다면, 상승하는 이 존재들의 현재 임무는 충분하고도 영광스럽다. 그들의 현재 운명은 진화적 상승의 우주적 계획을 전적으로

정당화한다. 그러나 외부 공간에 속한 구체들의 진화의 미래 시대들이, 인간 구원과 필사자 상승에 대한 그들의 신성한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하느님들의 지혜와 자애로움을, 의심할 여지없이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 더 많은 충만성과 함께 신성하게 조명한다.

30:4.34 (344.2) 이 글은, 너희에게 계시되어 온 것과 함께 그리고 너희 자신의 세계에 관한 설명과 관련하여 너희가 획득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상승하는 필사자의 생애에 관한 개요를 보여준다. 그 이야기는 다른 초우주들에서는 상당히 다르지만, 이 설명은 네바돈 지역우주 안에서 그리고 대우주의 일곱 번째 부분, 오르본톤 초우주 안에서 그것이 작동하는 바와 같이, 필사자 진보의 평균적인 계획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30:4.35 (344.3) [유버사로부터 온 막강한 메신저에 의해 후원되었음]

제 31 편 최종의 무리단

31:0.1 (345.1) 필사자 최종자 무리단은 시간의 상승하는 조절자-융합 필사자들의 현재 알려진 운명을 대변한다. 그러나 이

무리단에 배정된 다른 집단들도 있다. 1차 최종자 무리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31:0.2 (345.2) 1. 하보나 원주민.

31:0.3 (345.3) 2. 중력 메신저.

31:0.4 (345.4) 3. 영화롭게 된 필사자.

31:0.5 (345.5) 4. 입양된 세라핌천사.

31:0.6 (345.6) 5. 영화롭게 된 물질아들.

31:0.7 (345.7) 6. 영화롭게 된 중도 창조체.

31:0.8 (345.8) 영화롭게 된 이 여섯 집단의 존재들은 영원한 운명의 이 독특한 본체를 구성한다. 우리는 우리가 그들의 미래 활동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확신하지는 못한다. 필사자 최종자 무리단은 파라다이스에서 동원되고 있는 반면,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공간의 우주들을 너무나 광범위하게 돌보고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한 세계들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반면, 그들의 미래 운명은 반드시 외부 공간에 속한 현재-조직되고 있는 우주들이 될 것이다. 적어도 그것은 유버사에 대한 추측이다.

31:0.9 (345.9) 그 무리단은 공간의 세계들의 활동하는 관계적-연합들에 따라서 그리고 길고도 다사한 상승 생애에 두루 획득된 연관하는 체험과 조화하여 조직된다. 이 무리단에 받아들여진 상승한 창조체들 전체가 평등하게 취급되지만, 고양된 이 평등성은 어떤 면으로도 개별존재성을 폐기시키거나 또는 개인적 정체성을 파괴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최종자와 교통하면서 그가 상승자 필사자인지, 하보나 원주민인지, 입양된 세라핌천사인지, 중도 창조체인지, 또는 물질아들인지, 즉시 식별할 수 있다.

31:0.10 (345.10) 현재 우주 시대 동안 최종자는 시간의 우주들에서 봉사하기 위해 돌아온다. 그들은 다른 초우주들 안에서 연속적으로 수고하도록 배정되고, 다른 여섯 초(超)창조들 전부에서 봉사를 마친 이후까지는 자신이 태어난 초우주들 안에 배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최극존재의 칠중 개념을 취득한다.

31:0.11 (345.11) 필사자 최종자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반자들이 유란시아 안에서 계속 봉사하고 있다. 그들이 배정되지 않는 우주 봉사의 권역이 없으며; 그들은 우주적으로

그리고 교대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배정된 근무와 자유로운 봉사를 하면서 기능한다.

31:0.12 (345.12) 우리는 비범한 이 집단의 미래 조직의 본성에 대해 그 어떤 개념도 갖고 있지 않지만, 최종자는 지금 전적으로 자아-관리 무리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영구적, 주기적, 그리고 임무배정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을 선택한다. 어떤 외부 영향도 그들의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충성의 맹세는 오직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대해서일 뿐이다.

31:0.13 (346.1) 그 최종자는 파라다이스에, 초우주들 안에, 지역우주들 안에, 그리고 분할된 모든 수도(首都)들 위에 그들 자신의 본부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진화적 창조에 속한 별도의 계층이다. 우리는 그들을 직접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우리의 모든 계획에 항상 협조한다. 그들은 정말로 시간과 공간의 시험을 받고 참된 누적되는 흔들—우주의 진화적 소금—이며 그들은 언제까지나 악에 물들 수 없고 죄에 빠질 염려가 없다.

제 1 장. 하보나 원주민

31:1.1 (346.2) 중앙우주의 순례자-훈련 학교들에서 선생들로서 봉사하는 하보나 원주민들 대부분은 상승하는 필사자들에게 크게 배정되게 되며 필사자 최종자 무리단의 미래적 활동과 운명에 더 많이 관여한다. 파라다이스에서는 그랜환다의 연관-동료에 의해 지배되는 하보나 지원자들에 대한 등록부가 그 무리단의 행정-관리적 본부에 유지되고 있다. 오늘날, 너희는 이 대기 명단에 있는 수백만 명의 하보나 원주민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직접적이고도 신성한 창조에 속한 이 완전한 존재들은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에 큰 도움을 주며, 그들은 매우-먼 미래에 분명히 더 큰 봉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완전성과 신성한 충만성 속에서 탄생된 자의 관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최종자는 체험적 실존의 두 위상 모두를—완전한 그리고 완전하게 된—포용한다.

31:1.2 (346.3) 하보나 원주민들은 우주 아버지의 영의 단편을 증여 받을 수 있는 수용력을 창조하게 될 진화적 존재들과 연락하여 특정의 체험적 발전을 반드시 성취한다. 필사자 최종자 무리단은 최초 근원이며 중심의 영과 이미 결합된 또는, 중력 메신저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느님의 이

영을 태생적으로 체현하는 그러한 존재들만을 영원한 회원으로 삼는다.

31:1.3 (346.4) 중앙우주의 거주자들은 1,000명—최종자 중대(中隊)—당 1명의 비율로 이 무리단 안에 받아들여진다. 그 무리단은 1,000명, 한 명의 하보나 원주민과 한 명의 중력 메신저마다 997명의 상승하는 창조체의 중대들을 이루어 일시적 봉사를 위해 조직된다. 최종자는 그렇게 중대들로 동원되지만, 최종 서약은 개별적으로 관리-운영된다. 그것은 광범위하게 포함되고 영원한 중요성을 가진 서약이다. 그 하보나 원주민은 동일한 서약을 하고, 그 무리단에 언제까지나 배속된다.

31:1.4 (346.5) 하보나 신입생들은 그들이 배정된 그 중대를 따라가며; 그 집단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그들도 간다. 그리고 너희는 최종자의 새로운 업무에 대한 그들의 열정을 보아야만 한다. 최종의 무리단을 달성하는 가능성은 하보나에서의 장엄한 기쁨들 중 하나이다; 최종자가 되는 가능성은 이 완전한 종족들의 최극 모험여행들 중 하나이다.

31:1.5 (346.6) 하보나 원주민들 역시 대관별에 있는 공동 삼위일체화 최종자 무리단에 그리고 파라다이스에 있는 초월 최종자 무리단에 동일한 비율로 받아들여진다. 하보나 시민들은 하보나 최종자 무리단으로의 그들의 입장이 가능해지면서, 세 가지 운명들이 그들의 천상의 생애들의 최종 목표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장. 중력 메신저

31:2.1 (346.7) 중력 메신저들이 기능할 때는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최종자가 지휘한다. 모든 중력 메신저들은 그랜환다의 독점적 관할권 아래에 있고, 그들은 오직 1차 최종의 무리단에만 배정된다. 그들은 지금도 최종자에게 이루 해야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으며, 그들은 영원한 미래에 모든 것에-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능 창조체들 중 어떤 다른 집단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개인성구현된 메신저 무리단을 소유할 수 없다. 다른 최종자 무리단에 배정된 비슷한 유형의 메신저-기록자들은 개인성구현되지 않았다; 그들은 아(亞)절대화되어 있다.

31:2.2 (347.1) 중력 메신저들은 신성별로부터 흩어져 나오며, 그들은 변형되고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이지만, 우리 유버사 집단 중 어느 하나도 이 메신저들 중 하나의 본성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높은 개인적 존재들이며, 신성하고 지능적이고 감동적으로 납득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공간을 횡단하는 그들의 시간을 초월하는 기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일부 또는 전체의 에너지들과 순환회로들과 심지어는 중력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사자 무리에 속한 최종자는 시간과 공간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의 무한한 영 개인성들을 그들의 명령 아래에 종속시켜 왔고 그들과 연관해 왔다. 우리는 중력 메신저들을 개인성들이라고 부르려고 하지만, 실체 안에서 그들은 초(超)영 존재들, 무제한적이고 경계선이 없는 개인성들이다. 그들은 단독 메신저들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다른 계층의 개인성에 속한다.

31:2.3 (347.2) 중력 메신저들은 무제한적 숫자로 최종자 종대에 배정될 수 있지만, 그의 동료들 중 우두머리인 한 명의 메신저만이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에 소집된다. 아무튼 이

우두머리는 999명의 동료 메신저들로 구성된 영구적인 참모진을 그에게 배정해 왔으며, 필요한 경우에, 그는 무제한적 숫자로 그 계층의 예비자들에 보좌관들을 요청해도 좋다.

31:2.4 (347.3) 중력 메신저들과 영화롭게 된 필사자 최종자는 서로 감동적이고 심오한 애정을 가지며; 그들은 공통적인 것이 많은데: 하나는 우주 아버지의 단편의 직접적인 개인성구현이고, 다른 하나는 동일한 우주 아버지의 단편, 영 생각 조절자와 융합된 생존되는 불멸 혼 안에 실존하는 창조체 개인성이다.

제 3 장. 영화롭게 된 필사자

31:3.1 (347.4) 상승자 조절자-융합 필사자들이 1차 최종의 무리단의 대부분을 이룬다. 입양된 그리고 영화롭게 된 세라핌천사들과 함께 그들은 대개 각 최종자 중대마다 990명으로 구성한다. 필사자들이 세라핌천사들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집단 안에서의 필사자들 그리고 천사들의 비율은 다르다. 하보나 원주민들, 영화롭게 된 물질아들들, 영화롭게 된 중도 창조체들, 중력 메신저들, 그리고 알려지지 않고 누락된 대원은 그 무리의

1%에 지나지 않는다; 1,000명의 최종자로 구성된 각 중대는 필사자들이 아니고 세라핌천사들도 아닌 이 개인성들 중 10명에게만 자리를 제공한다.

31:3.2 (347.5) 유버사에 속한 우리는 시간의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최종 운명”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현재 파라다이스에 거주하고 있고 빛과 생명의 무리단 안에서 봉사하지만, 그러한 상승하는 훈련의 거대한 과정과 그러한 긴 우주 단련은 더 큰 신뢰의 시험과 더 숭고한 책임감의 봉사를 위해 그들이 자격을 갖추도록 고안되었음이 분명하다.

31:3.3 (347.6) 이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이미 파라다이스를 달성하고, 최종의 무리단에 소집되고, 지역우주들의 수행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고 초우주 관련사들에 대한 관리-행정에 있어서—심지어는 이 명백한 운명 앞에서—도움을 주기 위하여 많은 숫자로 되돌려 보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직 여섯 번째 단계 영들로서 기록되어 있다는 의의(意義)깊은 사실이 남아 있다.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의 생애 안에는 분명히 한 단계가 더 남아 있다. 우리는 그 단계의 본질을 알지

못하지만, 다음의 세 가지 사실들에 대해 인식해 왔고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

31:3.4 (348.1) 1. 우리는 필사자들이 소구역들 안에 머무는 동안 첫 번째 계층에 속한 영들임을, 그리고 그들이 대구역들에게로 전환될 때 두 번째 계층으로 나가고 그 초우주의 중앙 훈련 세계들에게로 갈 때 세 번째 계층으로 나간다는 것을 기록으로부터 알고 있다. 필사자들은 하보나의 여섯 번째 순환계에 도달한 이후에 제4의 영들 또는 졸업생 영들이 되며 그들이 우주 아버지를 발견할 때 다섯 번째 계층의 영들이 된다. 그 후에 그들은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의 영원 임무배정에 그들을 언제까지나 소집하는 서약을 한다.

31:3.5 (348.2) 우리는 한 영역이 우주 봉사로부터 다른 영역의 우주 봉사로 또는 한 우주로부터 다른 우주로 나아가는 실재적 진보에 의해 영 분류 또는 명칭이 결정된다는 것을 목격 한다; 우리는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에 대한 일곱 번째 영 분류의 증거가, 지금까지 기록되지 않고 계시되지 않은 구체들에서의 봉사를 위한 영원한 임무배정으로 그들이 승진함과 동시에 그리고 그들이 최극자 하느님을

달성함과 동시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감한 추측들을 제외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너희보다 실제로 더 알지 못 한다; 필사자 생애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현재 파라다이스 운명을 넘지 않는다.

31:3.6 (348.3) 2. 필사자 최종자는 그 시대들의 명령 , “너희가 완전 하라”는 것에 완전히 순응해 왔으며; 그들은 필사자 달성의 우주 경로를 상승해 왔으며; 그들은 하느님을 발견하였고, 최종의 무리단에 정식으로 모집되었다. 그러한 존재들은 궁극적 영 지위의 최종이 아니라 영 진보의 현재 한계를 달성하였다. 그들은 창조체 봉사의 최종이 아니라 창조체 완전의 현재 한계를 성취하였다. 그들은 체험적 신(神) 달성의 최종이 아니라 신(神) 경배의 충만함을 체험하였다.

31:3.7 (348.4) 3. 파라다이스 최종의 무리단에 속한 영화롭게 된 필사자들은 지능적 실존 중 가장 충분한 가능성의 삶에 해당하는 실재성과 철학의 각 단계의 체험적 지식을 소유하여 상승하는 존재들인 반면, 가장 낮은 물질적 세계들로부터 파라다이스의 영적 고지(高地)들을 향하여 상승하는 그 시대들 동안, 생존되는 이 창조체들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적 창조 전체에 대한 공정하고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자비롭고도 인내심이 많은 관리-행정의 모든 신성한 원칙의 모든 내용에 관한 그들의 수용력의 한계에 대해 훈련을 받아 왔다.

31:3.8 (348.5) 우리는 인간 존재들이 우리의 견해를 공유할 자격이 있으리라고, 그리고 파라다이스 최종의 무리단의 궁극적 운명의 신비에 관하여 우리와 함께 자유롭게 추측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완전하게 된 진화적 창조체들의 현재 임무배정이 우주 납득과 초우주 관리-행정에서의 졸업-이후 과정의 본성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듯이 보인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들이 왜 생존하고 있는 필사자들을 우주 운영 기법에서 것처럼 철저하게 훈련하는 데에 것처럼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다.

제 4 장. 입양된 세라핌천사

31:4.1 (348.6) 필사자들의 신실한 세라핌천사 수호자들 대부분은 그들의 인간 피보호자들과 함께 상승하는 생애를 지나가도록 허락을 받으며, 이 수호천사들 대부분은, 아버지 결합을 이룬 후에, 영원의 최종자 서약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피지배자들과 동참하고 그들의 필사자 연관-동료들의 운명을 언제까지나 받아들인다. 필사 존재들의 상승하는 체험을 통과하는 천사들은 인간 본성의 운명을 공유할 수 있다; 그들은 이 최종의 무리단에 동일하게 그리고 영원히 소집될 수도 있다. 많은 숫자의 입양되고 영화롭게 된 세라핌천사들이 다양한 비(非)필사자 최종자 무리단에 배정된다.

제 5 장. 영화롭게 된 물질아들

31:5.1 (349.1) 지역체계들에 속한 아담의-시민들이, 행성에서의 임무배정을 받는 일이 오래 지체될 때, 영구적-시민권 지위로부터 풀려나도록 탄원을 시작할 수 있는 규정이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 안에 있다. 그리고 만일 허락이 되면, 그들은 우주 수도들에서 상승하는 순례자들과 합류하며 그 때부터 최종의 무리단과 파라다이스를 향해 앞으로 나아간다.

31:5.2 (349.2) 진보된 진화 세계가 빛과 생명의 시기에 해당하는 후기 시대에 도달하였을 때, 그 물질아들들, 행성 아담들과 이브들은 인간화되기로 선택하고 조절자들을 받아들이며 필사자 최종자 무리단으로 인도되는 우주 상승의 진화적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물질아들들 중 일부는, 아담이 유란시아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생물학적 촉진제로서의 그들의 임무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실패하거나 기술적으로 불이행을 범해 왔으며; 그렇게 되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영역의 사람들의 자연적인 과정을 밟게 되는데, 조절자들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통과하고, 신앙으로 상승 체제를 통과하여 진보하며, 그 후에 파라다이스와 최종의 무리단을 달성한다.

31:5.3 (349.3) 이 물질아들들은 많은 최종자 중대들에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현존은 그러한 집단을 위한 높은 봉사의 가능성에 거대한 잠재를 부여하며, 그들은 늘 그것의 영도자로 택함을 받는다. 만일 에덴의 부부 모두가 같은 집단에 배정되면, 그들은 대개 한 개인성으로서 함께 기능하도록 허용된다. 그러한 상승한 쌍들은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경우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삼위일체화 모험 여행을 한다.

제 6 장. 영화롭게 된 중도 창조체

31:6.1 (349.4) 많은 행성들의 경우 중도 창조체들이 많은 숫자로 산출되지만, 그들은 그들이 탄생된 그 세계가 빛과 생명

안에 정착된 후에는 거기에 머무는 경우가 드물다. 그렇게 되면, 또는 그 후로 곧, 그들이 영구적인-시민권의 지위로부터 해방되고 파라다이스를 향해 상승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들과 함께 모론시아 세계들과 초우주 그리고 하보나를 지나간다.

31:6.2 (349.5) 다양한 우주들로부터 온 중도 창조체들은 기원과 본성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파라다이스 최종의 무리단들 중 하나로 가게 되어 있다. 2차 중도자들은 모두 결국에는 조절자와 결합하고 필사자 무리단으로 모집된다. 많은 최종자 중대들은 영화롭게 된 이 존재들 중 한 명을 그들의 집단 안에 갖고 있다.

제 7 장. 빛의 전도자

31:7.1 (349.6) 현재 각 최종자 중대에는 서약 지위를 가진, 영구적인 대원인 999명의 개인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비어 있는 자리는 어떤 단일 임무에 선임된 배정된 빛의 전도자들의 우두머리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존재들은 그 무리단들 중 유일한 과도기 성원들이다.

31:7.2 (349.7) 최종자 무리단의 봉사에 배정된 어떤 천상의 개인성이든지 빛의 전도자라고 명명된다. 이들 존재는

최종자 서약을 하지 않으며 그 무리단 조직에 복종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배정되지는 않는다. 이 집단은 단독 메신저들, 초(超)천사들, 2품 천사들, 파라다이스 시민들, 또는 그들의 삼위일체화된 자손들—과도기 최종자 임무배정의 실행에 필요한 어느 존재—을 포용할 수 있다. 우리는 무리단이 이들 존재들을 영원한 임무에 배정해 왔는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이들 빛의 전도자들은 배속됨에서의 결론에 이르면, 그들의 이전(以前) 지위를 재개한다.

31:7.3 (350.1)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여섯 등급의 영구적인 단원들이 있다. 그 최종자는, 기대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미래 동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추측을 하지만, 그들 중에 일치되는 경우는 드물다.

31:7.4 (350.2) 유버사에 속한 우리는 일곱 번째 집단의 최종자의 정체성에 관하여 종종 추측한다. 우리는 여러 개념들을 사용하는데, 파라다이스와 대관별 그리고 내부 하보나 순환회로에 있는 수많은 삼위일체화 집단들에 해당하는 모여드는 무리단들 중 일부의 가능성 있는 임무배정이

포함된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우주들의 봉사에 그들이 참여하도록 운명되어진 사건 안에서 우주 관리-행정의 업무에 있어서 그들의 보좌관들 중 대부분을 최종의 무리단이 삼위일체화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고까지 추측된다.

31:7.5 (350.3) 우리들 중 하나는, 그들이 미래에 봉사할 새우주 안에서 기원되는 어떤 유형의 존재에 의해 그 무리단 안에 있는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또 어떤 이는 이 자리가 아직 창조되거나 결국 생겨나거나 삼위일체화 되지 않은 어떤 유형의 파라다이스 개인성에 의해 차지되어질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기 전에 영 달성에 대한 그들의 일곱 번째 단계에 최종자가 들어가기로 기다릴 가능성이 가장 많을 것이다.

제 8 장. 초월자

31:8.1 (350.4) 최종자로서 파라다이스에서 완전하게 된 필사자의 체험의 일부는, 1,000개 이상의 집단에 해당하는 파라다이스의 초월적 초(超)시민들, 아(亞)절대적 속성들을 가진 결국 생겨난 존재들의 본성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 속에 있다. 이 초(超)개인성들과의 그들의 관계적-연합에 있어서, 상승한 그 최종자는 그들의 새로운 파라다이스 형제들에게 진보된 최종자를 소개하는 임무에 배정된 초월적 사명활동자들의 수많은 계층들에 대한 유익한 안내로부터 큰 협조를 받아들인다. 초월자들의 전체 계층은 그들이 배타적으로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 안에 있는 파라다이스의 서쪽에서 산다.

31:8.2 (350.5) 초월자들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우리는, 인간 이해의 한계들 때문만이 아니라, 파라다이스의 개인성들에 관한 이 계시를 지배하는 명령의 단어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는다. 이 존재들은 하보나를 향해 상승하는 필사자들과 어느 면에서도 관련되지 않는다. 파라다이스 초월자들의 거대한 무리는 하보나 또는 일곱 초우주 중 어느 것의 관련사들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는데, 주(主)우주 의 관련사들에 대한 초(超)관리-행정에 대해서만 관여한다.

31:8.3 (350.6) 창조체인 너희가 창조자를 상상할 수는 있지만, 창조자들도 아니고 창조체들도 아닌 지능 존재들의

거대하고도 다양한 집단들이 있음을 너희는 거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초월자들은 어떤 존재들을 창조하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은 창조된 적도 없다. 그들의 기원에 대해 말할 때, 새로운 단어—독단적이고 의미 없는 명칭—를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초월자들이 단순히 결국 생겨난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신(神) 절대자가 그들의 기원에 관여하였을 수도 있고 그들의 운명에 관계될 수도 있지만, 이들 독특한 존재들은 현재 신(神) 절대자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 그들은 궁극자 하느님에게 복종하며, 그들의 현재 파라다이스 체류는 모든 면에서 삼위일체의 감독과 지도를 받고 있다.

31:8.4 (351.1) 비록 파라다이스를 달성한 모든 필사자들이 그들이 파라다이스 시민들과 형제우애를 가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초월자들과도 자주 사귀기는 하지만, 필사자가 초월자와 처음으로 진지하게 접촉하는 것은, 초월자들의 우두머리, 곧 주관하는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의 우두머리에 의해 영원의 삼위일체 서약이 실시되면서, 새로운 최종자 집단의 회원으로, 필사자

상승자들이 최종자로 받아들여지는 순환계 안에 서 있는,
바로 그 사건 많은 계기에서이다.

제 9 장. 주 (主) 우주고안건축가

31:9.1 (351.2)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은 파라다이스 초월자들
중 지배하는 무리단이다. 지배하는 이 무리단은
주(主)마음들, 장엄한 영들, 그리고 천상의
아(亞)절대자들을 포함하는 28,011명의 개인성들로
구성된다. 훌륭한 이 집단을 지배하는 관리, 상급(上級)
주(主)고안건축가는, 신(神)의 차원 아래에 있는 모든
파라다이스 지능체들의 조화-협동 우두머리이다.

31:9.2 (351.3) 이 글들을 허락하는 명령의 열 여섯 번째 항목은
이렇게 말한다: “만일 현명하다고 생각하면,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의 실존은 계시될 수
있지만, 그들의 기원과 본성과 운명은 충분하게
계시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튼, 우리는 이
주(主)고안건축가들이 아(亞)절대의 일곱 차원들 안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릴 수 있다. 이 일곱 집단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 된다:

31:9.3 (351.4) 1. 파라다이스 차원. 오직 상급(上級) 또는 첫 번째-결국 생겨난 고안건축가만이 아(亞)절대의 가장 높은 이 차원에서 기능한다. 이 궁극적 개인성—창조자도 아니고 창조체도 아닌—은 영원의 여명기에 결국 생겨났으며 지금은 파라다이스 그리고 그것의 21개 연관 활동 세계들의 절묘한 조화-협동자로서 기능한다.

31:9.4 (351.5) 2. 하보나 차원. 두 번째 고안건축가의 결국 생김은 세 명의 주(主) 계획자들과 아(亞)절대 행정-관리자들을 낳았으며, 그들은 중앙우주에 속하는 10억 개의 완전한 구체들의 조화-협동에 항상 헌신해 왔다. 파라다이스 전통은 이 세 고안건축가들이, 이전에-결국 생겨난 선배 고안건축가의 조언에 따라, 하보나의 계획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알지 못한다.

31:9.5 (351.6) 3. 초우주 차원. 세 번째 아(亞)절대 차원은 일곱 초우주들의 일곱 주(主)고안건축가들을 포용하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의 집단으로서, 파라다이스에 있는 일곱 주(主) 영들과 함께 그리고 무한한 영의 특별한 일곱 세계들에 있는 일곱 최극 집행자들과 함께 거의 동일한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대우주의 초(超)조화-협동자들이다.

31:9.6 (351.7) 4. 1차 공간 차원. 이 집단은 70명의 고안건축가들로 구성되며, 우리는 그들이 현재 일곱 초우주들의 경계선 너머에서 결집되고 있는, 외부 공간의 첫 우주를 위한 궁극적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고 추측한다.

31:9.7 (351.8) 5. 2차 공간 차원. 이 다섯 번째 고안건축가 무리단은 490명으로 구성되며, 우리는 또 그들이, 분명한 에너지 결집을 우리 물리학자들이 이미 감지한 외부 공간의 두 번째 우주와 틀림없이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31:9.8 (352.1) 6. 3차 공간 차원. 주(主)고안건축가들 중 이 여섯 번째 집단은 3,430명으로 구성되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들이 외부 공간의 세 번째 우주를 위한 거대한 계획에 참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31:9.9 (352.2) 7. 4차적 공간 차원. 최종적이고 가장 큰 무리단인 이것은 24,010명의 주(主)고안건축가들로 구성되며, 만일 앞서 했던 우리의 추측이 맞는다면, 이것은 외부 공간의

계속-크기가-증가하는 4번째 그리고 최종 우주들과
분명히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31:9.10 (352.3) 주(主)고안건축가들의 이들 일곱 집단들은 총
28,011명의 우주 계획자들이다. 파라다이스에서는, 영원의
먼 과거에 28,012번째 주(主)고안건축가의 결국 생겨짐이
시도되었다는, 그러나 이 존재가 아(亞)절대구현 되는
일에 실패하고 우주 절대자에 의해 개인성 압류를
체험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주(主)고안건축가들의
상승하는 계열이 28,011번째 고안건축가 안에서
아(亞)절대성의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것, 그리고
28,012번째 시도가 그 절대자의 현존의 수학적 차원에
이르고자 하였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다른 말로 하면,
28,012번째 결국 생겨짐의 차원에서, 아(亞)절대성의 그
본질특성이 우주자의 차원과 동등하게 되었고 절대자의
가치에 도달하였다.

31:9.11 (352.4) 그들의 기능적 조직 안에서 하보나의 감독하는 그
세 고안건축가들은 단독 파라다이스 고안건축가에게
연관-동료 보좌관들로서 활동한다. 초우주들의 일곱
고안건축가들은 하보나의 세 감독자들의 조화-

협동자들로써 활동한다. 1차 외부 공간 차원에 속한 우주들의 70인 계획자들은 현재 일곱 초우주들의 일곱 고안건축가들에게 연관-동료 보좌관들로서 봉사하고 있다.

31:9.12 (352.5)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은, 두 개의 광대한 계층의, 기세 조직자, 1차적으로 결국 생겨난 그리고 연관-동료 초월자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집단의 보좌관들과 조력자들을 그들 임의대로 쓸 수 있다. 이 주(主)기세조직자들은 대우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힘 지도자들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31:9.13 (352.6) 최종자 그리고 파라다이스 시민들의 삼위일체화된 자손들과 같은, 시간과 영원의 자녀들의 연합에 의해 생산된 모든 존재들은, 주(主)고안건축가들의 피보호자들이 된다. 그러나 현재 조직된 우주들 안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계시된 다른 모든 창조체들 또는 실존개체들 중에서, 오직 단독 메신저들 그리고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만이 주(主)우주 의 초월자들 그리고 고안건축가들과의 어떤 유기적 관계적-연합을 유지한다.

31:9.14 (352.7) 주(主)고안건축가들은 지역우주들의 조직을 위한 그들의 공간 지역들에 대한 창조자 아들들의 임무배정의 기술적 승인에 기여한다. 주(主)고안건축가들과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들 사이에는 어떤 매우 긴밀한 연관이 존재하며, 이 관계가 계시되지 않은 반면, 너희에게는 최초 체험적 삼위일체의 관계 안에서의 고안건축가들 그리고 대우주 최극 창조자들의 연관이 알려져 왔다. 이 두 집단들은, 진화하고 체험적인 최극존재와 함께, 초월적 가치와 주 우주 의미들의 삼위일체 궁극자를 구성한다.

제 10 장. 궁극적 모험여행

31:10.1 (352.8) 선배 주(主)고안건축가는 일곱 개의 최종의 무리단을 감독하며, 그들은 다음과 같다:

31:10.2 (352.9) 1. 필사자 최종자 무리단.

31:10.3 (352.10) 2. 파라다이스 최종자 무리단.

31:10.4 (352.11) 3. 삼위일체화 최종자 무리단.

31:10.5 (353.1) 4. 공동 삼위일체화 최종자 무리단.

31:10.6 (353.2) 5. 하보나 최종자 무리단.

31:10.7 (353.3) 6. 초월적 최종자 무리단.

31:10.8 (353.4) 7. 계시되지 않은 운명의 아들의 무리단.

31:10.9 (353.5) 이들 운명의 무리단 각각에는 주관하는 우두머리가 있고, 그 일곱 명이 파라다이스에서 운명의 최극 위원회를 구성한다; 현재 우주 시대 동안 그랜드환다가 궁극적 운명의 자녀들을 위한 우주 임무 배정의 이 최극 기관의 우두머리다.

31:10.10 (353.6) 이 일곱 최종자 무리단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최극존재의 미래 주 우주 기능들까지도 초월하게 될지 모르는 잠재들, 개인성들, 마음들, 영들, 아(亞)절대성들, 그리고 체험적 실재성들의 실제 동원을 의미한다. 이 일곱 최종자 무리단들은, 외부 공간의 우주들 안에서의 상상할 수 없는 발전들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 유한하고 아(亞)절대적인 존재들의 기세들을 소집하는 일에 궁극적 삼위일체의 현재 활동이 참여하는 것을 아마 의미할 것이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그 당시 존재하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하보나의 개인성들을 비슷하게

동원시켰을 때 그리고 그들을 시간과 공간의 구체적으로 투사된 일곱 초우주들에 대한 관리행정자들 그리고 통치자들로써 임명하였을 때 영원에 가까운 그 시간 이후로 이 동원과 비슷한 어떤 것도 일어난 적이 없다. 그 일곱 최종자 무리단들은 미래의-영원한 활동의 외부 우주들 안에 있는 미개발된 잠재들의 미래 필요에 대한 대우주의 신성 응답을 나타낸다.

31:10.11 (353.7) 우리는 거주민이 사는 미래의 더 거대한 외부 우주들, 절묘하고 독특한 존재들의 새로운 계층들로 채워진 새로운 구체들, 그 궁극위에 있어서 숭고한 물질적 우주, 오직 하나의 중요한 내용만이 결핍된 거대한 창조—상승하는 실존의 우주적 삶에 있어서 실재적 유한 체험의 현존—에 대해 과감히 예측하고자 한다. 그러한 우주는 거대한 체험적 결손 즉: 전능 최극자의 진화에 참여함의 상실 아래에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 외부 우주들은 모두 최극존재의 비길 데 없는 보살핌과 숭고한 전반적-통제를 겪게 되겠지만, 그의 실재적 현존에 대한 바로 그 사실은 최극 신(神)의 실재화구현에 그들이 참여함을 불가능하게 한다.

31:10.12 (353.8)

현재 우주 시대 동안 대우주의 진화하는 개인성들은 최극자 하느님의 주권의 미완성 실재화구현에서 기인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체험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의 진화의 독특한 체험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그의 안에서 진화하고 그는 우리 안에서 진화한다. 영원한 미래의 언젠가 최극 신(神)의 진화가 우주역사의 완성된 사실이 될 것이며, 이 놀라운 체험에 참여하는 기회는 조화우주 활동의 무대로부터 지나가 버렸을 것이다.

31:10.13 (353.9)

그러나 우리들 중에서 우주의 유년기 동안 이 독특한 체험을 획득하는 자들은 미래의 전체 영원에 두루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 중 대부분은, 최극존재의 시간-공간 진화에 참여하지 않은 그들의 체험적 결핍을 보상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이 외부 우주들을 관리-운영하는 일이, 비슷하게 모집하는 여섯 개의 다른 무리단과 관계적-연합되는 최종의 무리단의 상승한 그리고 완전하게 된 필사자들의 점차적으로 누적하는 예비자들의 임무가 될 것이라고 추측한다.

31:10.14 (353.10) 이 결핍들은 우주 실존의 모든 차원들에서 불가피한 일이다. 현재 우주 시대 동안, 영적 실존들 중 비교적 높은 차원에 속한 우리는 지금 진화적 우주들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내려왔고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보살피며, 그리하여 비교적 높은 영적 체험에 속한 실체들 안에 있는 그들의 결핍을 보상하고자 애쓴다.

31:10.15 (354.1) 그러나 이 외부 창조계에 관한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의 계획에 대해 우리가 실제로 아무 것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들을 우리는 확신한다:

31:10.16 (354.2) 1. 외부 공간의 권역들 안에서 점차적으로 조직화하는 거대하고도 새로운 체계의 우주들이 실재적으로 있다. 새로운 계층의 물리적 창조계, 인간이 살고 조직화 된 창조계의 현재 한계를 훨씬 벗어나는 먼 곳에서 무리를 짓고 있는 수많은 그리고 거대한 우주들이, 너희 망원경을 통하여 실재적으로 관찰된다. 현재, 이 외부 창조계에는 거주되지 않으며 창조체 관리-행정이 부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31:10.17 (354.3) 2. 여러 시대들 동안, 여섯 개의 다른 최종자 무리단들과 관계적-연합하여, 시간과 공간의 완전하게 되고 상승한 존재들의 설명되지 않고 전적으로 신비에 싸인 파라다이스 동원이 계속되고 있다.

31:10.18 (354.4) 3. 이들 활동행위와 동시에, 신(神)의 최극자 개인은 초(超)창조계의 전능한 주권자로서 힘을 키우고 있다.

31:10.19 (354.5) 창조체들과 우주들 그리고 신(神)을 포용하고 있는, 이 삼원적 발전을 우리가 조명하면서, 새롭고도 계시되지 않은 어떤 것이 주 우주 안에서 최고점에 도달하고 있음을 예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최극존재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척도와 개인성 창발 위에서의 물리적 우주들의 이 오랜 세월에 걸친 동원과 조직화를, 신성한 완전을 향하여 시간의 필사자들을 올려주는 이 엄청난 기획과, 그리고 그 후에 파라다이스에서 최종의 무리단 안에 동원되는 것—우주 신비 안에 덧입혀진 명칭과 운명—과 연관시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집결하는 최종의 무리단이 외부 공간의 우주들 안에서 어떤 미래적 봉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유버사 전체가 점점 더 믿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이미 적어도 70,000개의 물질 집합체에
해당하는 군(群)을 정체성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각각은
현재 초우주들 중 어느 하나보다도 크다.

31:10.20 (354.6) 진화적 필사자들은 공간의 행성들에서 태어나고,
모론시아 세계들을 지나가고, 영 우주들을 상승하고,
하보나 구체들을 지나가고, 하느님을 발견하고,
파라다이스를 달성하고, 1차 최종의 무리단 안으로
소집되며, 거기에서 우주 봉사의 다음 임무배정을
기다린다. 여섯 개의 다른 집결하는 최종 무리단이 있지만,
최초의 필사자 상승자인 그랜환다가 최종자의 모든
계층의 파라다이스 우두머리로서 지배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모두 이렇게 외친다:
동물-기원의 시간의 자녀들, 공간의 물질 아들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운명이란 말인가!

31:10.21 (354.7) [유버사에 있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그렇게 활동하도록 권한을 받은 이름-번호 없는 자와
신성한 조연자에 의해 공동으로 후원되었음] * * * * *

31:10.22 (354.8) 신(神)의 본성, 파라다이스의 실체, 중앙우주와 초우주의 조직 그리고 활동, 대우주의 개인성들, 그리고 진화적 필사자들의 높은 운명을 묘사하는 이 31개 글들은, 서기 1934년에, 네바돈의 놀라시아텍에 있는, 사타니아의 606번, 유랜시아에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유버사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발령된 어떤 명령에 따라 활동하는 24명의 오르본톤 행정-관리자들로 구성된 높은 위원회에 의해 후원되고 공식화되고 영어로 기록되었다.

유랜시아 책

부 II. 지역우주

제 32 편 지역우주들의 진화

32:0.1 (357.1) 지역우주는 파라다이스의 미가엘 계층의 창조자 아들의 작품이다. 그것은 100개의 별자리들을 포함하는데, 그 각각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이 있는 100개의 체계들을 갖는다. 각각의 체계는 결국에는 약 1,000개에 달하는 거주민이 사는 구체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32:0.2 (357.2)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이 우주들은 모두 진화한다. 파라다이스 미가엘들의 창조적 계획은 그러한 어떤 지역우주를 포함하는 다양한 계층의 구체들에 거주하는 가지각색 창조체들의 육체적, 지적, 영적 본성 그리고 능력의 점진적 발전과 점차적인 발달 경로를 따라 항상 진행된다.

32:0.3 (357.3) 유란시아는 네바돈의 하느님-사람, 나사렛의 예수이며 구원자별의 미가엘인 그 분이 지배하는 지역우주에 속해 있다. 그리고 이 지역우주에 대한 미가엘의 모든 계획들은 그가 공간의 최극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의해 충분한 승인을 받았다.

32:0.4 (357.4) 하느님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창조자 활동의 영역을 선택할 수 있지만, 물질적인 이 창조들은 기원적으로 파라다이스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투사되고 계획되었다.

제 1 장. 우주들의 물리적 창발

32:1.1 (357.5) 공간-기세의 우주-이전(以前) 조종과 원초적 에너지들은 파라다이스 주(主)기세조직자들의 일이지만;

초우주 권역에서는, 창발에너지가 지역 또는 직선 중력에 반응하게 될 때, 그들은 관계된 초우주의 힘 지도자들을 위하여 물러난다.

32:1.2 (357.6) 이 힘 지도자들은 지역우주 창조의 물질-이전(以前) 단계와 기세-이후(以後) 단계에서 홀로 기능한다. 창발 하는 우주를 위한 물질적 기초—말 그대로의 태양들과 물리적 구체들—를 충분히 공급하는 공간-에너지들의 활성화를 힘 지도자들이 이룩하기 전까지는 창조자 아들이 우주 조직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32:1.3 (357.7) 지역우주들은 때때로 가시적(可視的)-물질 내용물이 서로 다르고 물리적 규모들이 크게 다르다 하더라도 에너지 잠재에 있어서는 모두가 거의 같다. 지역우주의 힘 충전량과 잠재적-물질 자질은 창조자 아들의 활동들에 의해 그리고 그의 창조적 연관-동료들에 의해 소유되는 선천적인 물리적 통제의 자질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선조들의 조종에 의해 결정된다.

32:1.4 (358.1) 지역우주의 에너지 충전량은 그것이 속한 초우주의 기세 자질의 약 100,000분의 일에 해당한다. 너희의 지역우주인 네바돈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질화 질량이 약간 적다. 물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네바돈은 오르본톤의 지역우주 창조들 중에 어떤 경우에도 발견될 수 있는 에너지와 물질의 물리적 자질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 네바돈 우주의 발전적 팽창에 대한 유일한 물리적 제한은 연관된 힘들과 우주의 연관적 기능구조의 개인성들의 중력 통제에 의해 사로잡힌 공간-에너지의 양적 충전량 속에 있다.

32:1.5 (358.2) 에너지-물질이 질량 물질화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단계에 도달하면,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이 그곳에 출현하는데, 무한한 영의 창조 딸을 대동한다. 창조자 아들의 도착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투사된 지역우주의 본부 세계가 될 고안건축 구체에 대한 작업이 시작된다. 그러한 지역우주 창조가 진행되는 긴 세월 동안, 태양들이 안정을 찾고 행성들이 형성되어 자기 궤도를 돌게 되는데, 별자리 본부들과 체계 수도(首都)의 역할을 하는 고안건축 세계들에 대한 창조 작업이 그동안 계속된다.

제 2 장. 우주 조직

32:2.1 (358.3)

창조자 아들들은 우주 조직화에 있어서 셋째근원이며 중심 속에서 기원되는 다른 존재들과 힘 지도자들보다 우위를 차지한다. 너희의 창조자 아들인 미가엘은 그렇게 전에 조직화된 공간의 에너지들로부터 네바돈 우주의 거주민이 사는 영역들을 건설하였고 그 후로 계속 그것들의 관리-행정에 정성을 들여 헌신해 오고 있다. 신성한 이 아들들은 선재하는 에너지로부터 가시적 물질을 형태화하고, 살아있는 창조체들을 구체적으로 투사하고, 무한한 영의 우주적 현존의 협조로 다양한 영 개인성 수행원들을 창조한다.

32:2.2 (358.4)

우주 조직화의 예비적인 물리적 작업에서 창조자 아들보다 훨씬 앞서서 일하였던 이 힘 지도자들과 에너지 통제자들은 나중에 이 우주 아들과의 장엄한 연락 속에서 봉사하는데, 그들이 기원적으로 조직하고 순회시켰던 그 에너지들의 통제와 연관된 일에 언제까지나 종사한다. 구원자별에는 이 지역우주의 기원적으로 형태화에서 너희의 창조자 아들과 협력하였던 동일한 100명의 기세 중심들이 현재 기능하고 있다.

32:2.3 (358.5) 네바돈에서 최초로 완성된 물리적 창조의 행위는 본부 세계의 조직에서, 그것의 위성들과 함께 구원자별의 고안건축 구체에서 이루어졌다. 힘 중심들과 물리통제자들의 최초 움직임이 있던 때로부터 구원자별의 완성된 구체에 살아있는 참모진이 도착할 때까지의 사이에, 너희의 현재 행성 시간으로 10억 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구원자별이 건설된 후에 즉시로, 구체적으로 투사된 별자리들의 100개 본부 세계들과 행성 통제 그리고 관리-행정을 받는 구체적으로 투사된 지역 체계들의 10,000개 본부 구체들이 그것들의 고안건축 위성들과 함께 창조되었다. 그러한 고안건축 세계들은 육체적 개인성과 영적 개인성들뿐만 아니라 중간에 있는 모론시아 또는 변화 단계의 존재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32:2.4 (359.1) 네바돈의 본부인 구원자별은 지역우주의 정확한 에너지-질량 중심에 위치한다. 그러나 너희의 지역우주는 비록 하나의 큰 체계가 그것의 물리적 중심에 존재하더라도 단 하나의 천문학적 체계는 아니다.

32:2.5 (359.2)

구원자별은 네바돈의 미가엘의 개인적인 본부이지만, 그가 항상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너희의 지역우주가 아무 문제없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창조자 아들이 중심 구체에 고정되어 현존할 필요가 더 이상 없는데, 이것은 물리적 조직화의 초기 신(新)시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양한 순환회로와 체계들이 상호 물리적 인력에 의해 서로 평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가 물질화됨으로써 달성된 영역의 중력 안정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창조자 아들이 자신의 본부를 떠날 수 없다.

32:2.6 (359.3)

마침내, 한 우주에 대한 물리적 계획이 완성되었고, 창조자 아들은 창조 영과 관계적-연합하여 생명 창조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투사하였는데, 그 후에 무한한 영의 이 연출은 하나의 독특한 창조적 개인성으로서의 우주적 역할을 시작하였다. 최초의 이 창조적 행동이 공식화 되고 시행되었을 때, 신성(神性)의 정체성과 이상에 대한 최초의 이 창조적 개념의 개인화구현인, 빛나는 새벽별이 나타나 존재하게 되었다. 이 존재는 우주의 우두머리 집행자인데, 창조자 아들의 개인적 연관-동료이며, 신성의

속성에 있어서는 뚜렷하게 제한되어 있지만 모든 성격적 측면에서는 그를 닮았다.

32:2.7 (359.4) 그리고 이제 창조자 아들의 믿을만한 조력자와 우두머리 집행자가 준비되었으므로, 다양한 창조체들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훌륭한 조직들이 계속 실존하게 되었다. 지역우주들의 아들과 딸들이 출현하였고 그 후로 곧 그러한 창조를 다스리는 정부가 제공되었는데, 우주의 최고협의회들로부터 별자리들의 아버지들과 지역체계들—나중에 의지적 창조체들로 구성된 다양한 필사자 종족들의 고향이 되도록 고안된 그 세계들의 집합체—의 주권자들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 이 세계들 각각은 행성영주에 의해 다스려질 것이다.

32:2.8 (359.5) 그리고 나서, 그러한 우주가 그토록 완벽하게 조직화 되고 충분히 길들여졌을 때, 창조자 아들은 자기들의 형상대로 필사자 사람을 창조하자는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었다.

32:2.9 (359.6) 행성 거주지들의 조직은 네바돈에서 아직도 진행 중인데, 왜냐하면 이 우주는 오르본톤의 별들과 행성 영역에서 하나의 어린 군(群)에 속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네바돈에는 현재 3,840,101개의 거주민이 사는
행성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너희가 사는 세계가 속한
지역체계인 사타니아는 다른 체계들과 매우 유사하다.

32:2.10 (359.7) 사타니아는 하나의 균일한 물리적 체계, 하나의
단일 우주 단위 또는 조직체가 아니다. 거주민이 사는
619개의 세계들이 5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물리적 체계들
안에 위치해 있다. 오직 5개만이 두 개 보다 많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를 갖고 있으며, 이들 중에 오직 한 개는 국민이
있는 네 개의 행성들을 가지고 있고, 한편 46개는 두 개의
거주민이 사는 세계를 가지고 있다.

32:2.11 (359.8) 거주되는 세계들로 이루어진 사타니아 체계는
일곱 번째 초우주의 물리적 또는 우주적 중심지로
기능하는 거대한 태양 군(群)과 유버사로부터 멀리
이동되어 있다. 사타니아의 본부인 예루셈으로부터
오르본톤 초우주의 물리적 중앙까지는 200,000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데, 은하수의 조밀한 직경 부분에서 매우 멀리
있다. 사타니아는 지역우주의 가장자리에 있고 네바돈은
현재 오르본톤 가장자리를 향해 잘 뻗어나가고 있다.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 중에서 가장 밖에 있는 체계로부터
초우주의 중앙까지는 25만 광년보다 약간 가깝다.

32:2.12 (360.1) 네바돈 우주는 오르본톤 초우주 순환회로에서
남동쪽으로 멀리 회전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우주들은:
아발론, 헨셀론, 산셀론, 포타론, 울버링, 화노빙,
알보링이다.

32:2.13 (360.2) 그러나 지역우주의 진화는 하나의 긴 이야기이다.
초우주를 다루는 글들이 이 주제를 소개하고, 지역
창조들을 취급하는 이 부분이 그것을 계속하며, 그러한
것에 뒤 따라, 유란시아의 역사와 운명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완성한다. 그러나 너희는 한 때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너희들 자신의 진화 세계에서 사람의
삶을 살았던 바로 그대로 너희의 창조자 아들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들을 숙독함으로써만 그러한 지역
창조의 필사자들의 운명을 알맞게 이해할 수 있다.

제 3 장. 진화적 관념

32:3.1 (360.3) 완벽하게 안정된 유일한 창조는 중앙우주인
하보나인데, 그것은 우주 아버지의 생각과 영원한 아들의
말씀에 의해 직접적으로 만들어졌다. 하보나는

실존적이고 완전하며 충만한 우주인데, 모든 것들의 중심인 영원한 신(神)들의 고향을 둘러싸고 있다. 일곱 초우주들의 창조계들은 유한하고 진화적이며 시종일관 진보적이다.

32:3.2 (360.4)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체계들은 모두가 기원에서는 진화적이다. 그것들은 자기들의 초우주들의 안정된 순환회로들 속으로 회전하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전혀 안정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우주 역시 그것의 물리적 확대 그리고 발전 가능성들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거주민이 사는 모든 세계들의 영적 지위가 언제까지나 정착되고 안정되기 전까지는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되지 못한다.

32:3.3 (360.5) 중앙우주의 경우를 제외하고, 완전은 하나의 발전적 달성이다. 중앙 창조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의 완전의 원형틀을 갖고 있지만, 다른 모든 영역들은 그 특정 세계들 또는 우주들의 진보를 위해 확정된 방법들에 의해 그 완전을 달성해야만 한다. 그리고 거의 무한한 다양성이 창조자 아들들의 각각의 지역우주들을 조직하고

진화시키고 교육단련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그들의 계획에 특성을 부여한다.

32:3.4 (360.6) 아버지의 신(神) 현존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우주는 어떤 면에서 중앙 또는 원형틀 창조의 행정-관리적 조직체의 복제품이다. 비록 우주 아버지가 주재하는 우주에 개인적으로 현존한다 하더라도, 그는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들의 혼과 함께 정말로 거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우주 안에서 기원되는 존재들의 마음에 내주하지는 않는다. 멀리 퍼지는 창조의 영적(靈的) 관련사들에 대한 조절과 규제 속에는 모든-지혜의 보상이 있는 것 같다. 중앙우주 안에 아버지는 것처럼 현존하지만, 그 완전한 창조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부재하신다; 공간의 우주에서 아버지는 개인 안에 부재하시고, 자신의 주권 아들들에 의해 대표되어 존재하며, 한편으로는 자기 필사자 자녀들의 마음속에 친밀하게 현존하며, 이 의지적 창조체들의 마음 속에 거주하는 신비 감시자들의 전(前)개인적 현존에 의해 영적으로 대표되어 존재하고 있다.

32:3.5 (360.7) 지역우주의 본부에는, 우주 아버지의 개인적 현존을 제외하고 자아-억제된 권한과 행정-관리적 자치권을 대표하는 그 모든 창조자 그리고 창조적 개인성들이 거주한다. 지역우주에서는 우주 아버지를 제외하고 중앙우주 안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등급의 지능 존재들 중 어떤 존재 그리고 각각의 어떤 것이 발견될 것이다. 비록 우주 아버지가 지역우주 안에 개인적으로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는 그것의 창조자 아들, 때로는 하느님의 대리자며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권세 속에서 최극의 그리고 주권적 통치자인 그 분에 의해 개인적으로 대표된다.

32:3.6 (361.1) 우리가 생명의 눈금을 더욱 내려갈수록,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를 신앙의 눈으로 알아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보다 낮은 창조체들—그리고 때로는 높은 개인성들까지—은 자신의 창조자 아들들 안에서 우주 아버지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 고양(高揚)의 시기, 발달의 완전함이 그들로 하여금 개인으로서 하느님을 보게 해주는 시기가 미루어지면서, 그들은 진보에서 점점 더 피곤해지고, 영적인 의구심을 지니며, 혼돈에 빠지고, 그리하여

자신들의 시간과 우주에 있는 진보하는 영적 목표들로부터 자신들을 고립시킨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창조자 아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를 보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아버지께 도달하기까지의 긴 투쟁에 두루, 주어진 상황들이 그러한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시기동안 창조체에게 가장 분명한 안전수단은 아버지의 현존이 그의 아들들 안에 있다는 진리-사실을 끈질기게 붙잡는 것이다. 글자 그대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들은 하나이다. 다음과 같은 말은 사실이다: 창조자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32:3.7 (361.2) 어떤 주어진 우주에서의 개인성들은 처음에는 신(神)에 대하여 가지는 그들의 친족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오직 안정되어지고 믿을만하다. 창조체 기원이 기원자며 그리고 신성한 자인 근원들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들을 다루거나 또는 무한한 영에 속한 사명활동의 창조체들을 다루든지 상관없이, 부조화와 혼란, 그리고 때로는 반역—죄—에서의 가능성의 증가가 있다.

32:3.8 (361.3)

신(神) 기원의 완전 존재들을 제외하고, 초우주들에 있는 모든 의지적 창조체들은 진화적 본성을 갖는데, 내부적 실체에 있어서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영원히 위를 향해 올라간다. 심지어는 고귀하게 영적인 개인성들도 삶에서 삶으로 그리고 구체에서 구체로 진보적 전환에 의해 삶의 계단을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그들이 신비 감시자들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의 영적 상승과 우주 달성의 가능성 정도에 정말로 어떤 제한도 없다.

32:3.9 (361.4)

시간 창조체에서의 완전은, 마침내 최종적으로 성취되었을 때, 그것은 전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이며, 진정한 개인성 소유물이다. 은혜의 요소들이 아낌없이 섞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체 달성은 개별적 노력과 그리고 실재적인 삶에서의 결과, 존재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개인성의 반응의 결과이다.

32:3.10 (361.5)

진화하는 기원이 동물적이라는 사실은 그것이 유한한 지적 의지 창조체의 두 가지 기본적 유형 중 하나를 생성하는 배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우주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어떤 개인성에게도 오점이 부가되지 않는다.

바닥에서 시작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삶의 사다리를 기쁨에 넘쳐 올라왔던 그들이, 완전과 영원의 높이를 도달하였을 때는 모든 것이 더욱 큰 명예가 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영광의 높이에 다가왔을 때는, 바닥에서 정상까지 모든 삶의 위상에 대해 실재적인 지식을 체험하는 개인적 체험을 획득하였을 것이다.

32:3.11 (361.6) 이 모든 것 속에서 창조자들의 지혜가 보인다. 모든 필사자들을 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것, 자신의 신성한 말씀으로 완전함을 부여하는 것은 우주 아버지에게 아주 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길고도 차근차근히 안쪽으로 올라가는 것과 연관된 훈련과 모험의 놀라운 체험, 삶의 실존의 아주 밑바닥에서 시작함으로서만 가질 수 있는 체험을 너무나 운 좋게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빼앗는 것이 될 것이다.

32:3.12 (362.1) 하보나를 빙빙 도는 우주들 안에는, 삶의 진화 단계를 상승하는 그들을 위한 원형틀 교사 안내자들에게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충분한 숫자의 완전한 창조체들만이 제공된다. 진화적 유형의 개인성의 체험적 본성은 파라다이스-하보나 창조체들의 항상-완전한

본성들을 갖는 자연적인 조화우주 보조물이다. 실체에 있어서, 완전한 창조체들과 완전하게 된 창조체들은 둘 모두 유한한 전체성의 면에서 미완성이다. 그러나 진화적 우주들로부터 상승하는 체험적으로 완전하게 된 최종자와 파라다이스-하보나 체계의 실존적으로 완전한 창조체들의 보완적 관계적-연합 속에서, 두 유형들은 선천적인 한계들로부터의 해방을 발견하며 그리하여 창조체 지위의 궁극이라는 장엄한 높이에 도달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도할 수 있다.

32:3.13 (362.2) 이 창조체 활동행위들은 칠중 신(神)의 행동과 반응을 일으키는 우주 반향인데, 거기에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영원한 신성이, 최극존재의 힘-실제화 신(神)안에서, 신(神)에 의해서, 그리고 신(神)을 통하여 시간-공간 우주의 최극 창조자들의 진화하는 신성(神性)과 결합한다.

32:3.14 (362.3) 신성하게 완전한 창조체와 진화적으로 완전하게 되는 창조체는 신성 잠재의 정도에 있어서 동등하다, 단지 종류에서 다를 뿐이다. 각각은 봉사의 최극위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의존해야만 한다. 진화적인 초우주들은

자신들의 상승하는 시민들에게 최종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완전한 하보나에 의존하지만, 완전한 중앙우주는 그곳 하강하는 주민들의 충분한 발전을 제공하기 위해 완전하게 되는 초우주들의 실존을 그렇게 필요로 한다.

32:3.15 (362.4) 유한 실체의 두 가지 주된 현시활동들, 타고난 완전성과 진화된 완전성은, 그들이 개인성들이든 혹은 우주들이든, 조화-협동하고 의존하고 집대성된다. 각각은 기능, 봉사, 그리고 운명의 완성을 성취하기 위하여는 다른 하나가 필요하다.

제 4 장. 지역우주에 대한 하느님의 관계

32:4.1 (362.5) 아버지가 자기 자신과 자기 힘을 다른 존재들에게 그토록 많이 위임한 이후로, 그가 신(神) 동반자 관계의 일원으로서는 침묵을 지키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개인성 권역과 조절자 증여를 제외한다면, 그는 자신의 영원한 목적 달성에 있어서 자신의 신(神) 협조자들과 자신의 아들들 그리고 수많은 창조된 지능체들로 하여금 그토록 많은 부분을 수행하도록 허락하면서, 파라다이스 신(神)들로서는 최소한의 활동을 하는 듯이 보인다. 그는 자신의 조화-협동

동료들 또는 종속된 연관-동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창조 삼총사의 일원으로서
침묵을 지킨다.

32:4.2 (362.6) 하느님은 모든 지능적 창조체에게 필요한 기능과
체험을 충분히 납득하고 계신다, 그리하여 그것이 그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창조체들의 우주 운명이나 또는 가장
비천한 처지에서의 복지에 관련되게 하고, 하느님은
자신과, 모든 주어진 우주상황 또는 창조적 사건에서
선천적으로 개제하는, 창조자 개인성들과 그리고 창조체
은하계에 이익을 돌리면서 활동으로부터 물러나 계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퇴역, 무한한 조화-협동에 대한
이러한 전시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건 안에는 이들 예정된
대리자와 개인성들에 의한, 그리고 그들을 통한 하느님의
실재적, 글자그대로의, 개인적 참여에서의 부분이 있다.
아버지는 널리-퍼지는 모든 자신의 창조체의 복지를
위하여 이 모든 경로 안에서, 이를 통하여 일하신다.

32:4.3 (363.1) 지역우주의 방침, 처리행위, 관리-행정을 고려할
때, 우주 아버지는 자신의 창조자 아들의 개인 안에서
활동하신다. 하느님의 아들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셋째근원이며 중심 속에 기원된 개인성들의 집단 관계적-연합들 안에서, 또는 다른 어떤 창조체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인간 존재들—그러한 연합들을 고려할 때 우주 아버지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창조자 아들의 법칙, 별자리 아버지들과 체계 주권자들 그리고 행성영주들의 통치—그 우주를 위한 정해진 방침들과 과정들—이 항상 우세하다. 권한의 분할이 없으며; 신성한 힘 또는 목적의 상충된 활동이 결코 있을 수 없다. 신(神)들은 완전하고 영원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

32:4.4 (363.2) 창조자 아들은 윤리적 관계적-연합들의 모든 문제들, 어떤 주어진 집단 안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개별존재들 또는 다른 어떤 등급에 대한 창조체들의 어떤 일부분의 관계들을 최극으로 통치하지만; 그러한 계획이 모든 창조에 두루 어떤 개별존재 창조체를 신성한 마음이 즐거워하도록 우주 아버지가 그 개별존재의 현재 지위 또는 미래 예상에 적합하도록 그리고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과 무한한 목적을 고려하여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개입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2:4.5 (363.3) 필사자 의지 창조체들 안에서 아버지는 내주 하는 조절자, 전(前)개인적 자기 영의 단편(斷片) 안에 실재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아버지는 또한 그러한 필사자 의지 창조체의 개인성의 근원이기도 하다.

32:4.6 (363.4) 이 생각 조절자들, 우주 아버지의 증여 존재들은 비교적 고립되어 있다; 그들은 인간 마음에 내주하지만 그러나 지역 창조계의 윤리적 관련사들과는 그 어떤 식별될 만한 연결도 없다. 그들은 세라핌천사 봉사뿐만 아니라 체계들, 별자리들, 또는 지역우주의 관리-행정,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우주의 최극 법을, 의지로서 지니고 있는 창조자 아들의 통치와도 직접적으로 조화-협동하지 않는다.

32:4.7 (363.5) 내주 하는 조절자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된 일부분이지만, 그러나 무한한 창조 이외의 모든 창조체들과 접촉하는 통합된 방식이다. 필사자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는 자신의 현존을 그렇게 현시하며, 또한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는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들에게 자신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더 이상의 계시는 신성하게 가능하지 않다.

32:4.8 (363.6) 우리는 아들들이 자신들이 관할하는 우주들에 관하여 친밀하고도 완벽한 지식을 누리는 기능구조를 볼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이 우주들의 우주의 세부적인 것에 것처럼 충분하고도 개인적으로 정통한 것에는 그 방법들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소한도 우주 아버지가 자신의 광대한 창조계의 존재들에 관하여, 그리고 자신의 현존을 현시하는 것에 관하여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큰길을 인지할 수가 있다. 아버지는 개인성 순환회로를 통하여 모든 창조계의 모든 우주들의 모든 체계 안에 있는 모든 존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에 대해 인식하며—개인적인 지식을 가지며—있다. 비록 우리들이 하느님의 자기 자녀들과의 교제의 기법을 충분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아신다.”는 것, 우리들 각자 각각에 대하여 “그가 우리들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유념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

32:4.9 (363.7) 너희의 우주 안에 그리고 너희의 가슴 안에, 우주 아버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말하자면, 중앙 거처의 일곱 주(主) 영들의 하나로서 그리고 특히 필사자

마음의 깊은 곳에서 살고 일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신성한 조절자로서 제시되고 있다.

32:4.10 (363.8) 하느님은 자아-중심적인 개인성이 아니며;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자기 창조에게 그리고
창조체들에게 자유롭게 배분하신다. 그는 신(神)들
안에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 안에서도 존재하고
활동하는데, 활동하는 것이 그들에게 신성하게 가능한
모든 것을 하도록 그들에게 위탁되었다. 우주 아버지는
실행하는 것이 다른 존재에게 가능한 모든 역할로부터
정말로 떠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우주의 본부에서
하느님 대신에 통치하는 창조자 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필사자 사람에게도 그러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주 아버지의 이상과 무한한 사랑의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32:4.11 (364.1) 이러한 자기 자신의 우주적 증여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의 광대함과 관대함 둘 모두에 대한
풍성한 증거를 갖고 있다. 만약에 하느님이 우주
창조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것을 보류하였다면, 그
나머지에 대하여 그는 영역들의 필사자들에게 생각

조절자들, 영속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필사자 후보자들 안에
그토록 끈기 있게 내주 하는 시간의 신비 감시자들을
아낌없이 증여하고 계시는 것이다.

32:4.12 (364.2) 우주 아버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창조가
개인성 소유와 잠재적인 영적 달성에 있어서 풍성하게
되도록 자기 자신을 쏟아 부어 주신다. 하느님은 우리가
그를 닮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포기하는 그 사랑을 위하여
그것들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힘과 영광을
예비해 두신다.

제 5 장. 영원하고 신성한 목적

32:5.1 (364.3) 공간을 통과하는 우주들의 행진 속에는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다. 너희 필사자들의
모든 투쟁은 헛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광대한
계획, 거대한 활동사업의 일부분이며, 어떤 한 시점에서
그리고 어느 한 삶의 기간에서 그것을 충분히 똑바로
알기가 불가능한 것은 떠맡고 있는 그 일의 광대함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들이 지휘감독하고 능히
다스리는 영원한 구체적 투사의 한 부분이다. 경이롭고도

우주적인 전체 기능구조는 위대한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무한생각과 영원목적의 박자로 이루어진 음악에 맞추어
공간에 두루 장엄하게 움직이고 있다.

32:5.2 (364.4) 영원한 하느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의 높은 영적
이상이다. 시간의 사건들과 물질적 실존의 투쟁들은 다른
편, 영적 실체와 고귀한 실존이라는 약속된 땅에 이르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짧은 기간의 발판에 불과하다. 물론 너희
필사자들은 영원한 목적에 대한 관념을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너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에 대한 생각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너희가 아는 모든 것들은 끝이 있다.

32:5.3 (364.5) 개별적 인생, 영역에서의 존속 기간, 또는 어떤
일련의 연결된 사건들의 한 연대기를 말할 때, 우리가 어떤
격리된 하나의 시간의 뻗침을 다루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 삶, 세월, 신(新)시대의 연속적 배열이, 하나의 직선
도로를 구성하면서, 영원의 무한한 표면을 순간적으로
번쩍이며 가로지르는, 시간의 격리된 사건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장면 뒤 편에서, 보다

포괄적인 관점과 보다 완벽한 납득으로 바라보면, 그러한 해설은, 시간의 활동행위를 바닥에 깔려있는 영원의 목적과 기본 반응과 함께 설명하기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연관시키기에도, 도무지 부적당하고, 앞뒤가 맞지 않고, 적합하지 않다.

32:5.4 (364.6) 나에게 있어서는 필사자 마음에게 설명할 목적으로, 영원을 끝이 없는 순환계로서의 영원한 목적과 하나의 주기, 어떤 면에서는 시간의 과도기 물질 주기와 동조되는 영원의 주기로 이해하는 것이 적당한 것처럼 보인다. 영원의 주기와 연결되고 또한 그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시간의 구역에 관해서는, 우리는 시간의 일시적 존재들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것과 똑같이 그러한 일시적 신(新)시대들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인간 존재는, 조절자 융합의 영적 차원을 성취하는데 실패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죽음이라는 탈바꿈이 그들이 시간의 족쇄와 물질적 창조체에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오직 가능한 과정이 되는 것이며, 그로서 진보하는 영원의 행진에 영적 발걸음을 맞추어 힘차게 내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질적 실존과 시간에서의 시험적 삶에서 생존을 겪으면,

그것이 너희를 영원 위에서, 아니 한 부분으로서 그렇게
영원과 접촉하며, 영원한 시대의 순환계 둘레에 있는
공간세계들과 함께 언제까지나 그 위에서 휘도는 회전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32:5.5 (365.1) 시간의 구역들은 일시적 형태로 번쩍 나타나는
개인성의 섬광과 같다; 그들은 한 때 나타나고는, 그리고는
인간의 시야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영원한
순환계 주위를 끝없이 진동하는, 보다 높은 삶에서 새로운
배우로서 그리고 계속되는 요소들로 다시 나타날 뿐이다.
우주 아버지의 중앙 거주지 처소 주위의 광대하고 그리고
길게 늘어난 순환계 주위를 움직이는 한정된 우주를 믿는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이 직선도로의
여정으로는 도저히 착상될 수가 없다.

32:5.6 (365.2) 솔직히 말해서, 영원은 시간의 유한한 마음의
존재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너희는 다만 그것을
파악할 수 없으며;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그것을
완벽하게 묘사하지 않으며, 또 비록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나의 개념을 인간 마음에게 옮기는 일이
나에게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납득을 어느 정도 너희에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관점에서 어떤 것을 묘사하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나는 무한한 본성과 영원한 의미에 해당하는 이 가치들에 관한 너희의 생각들을 정형화 시키는 일에 너희를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32:5.7 (365.3) 하느님의 마음속에는 그의 모든 광대한 권역에 속한 모든 창조체를 포용하는 계획이 있으며, 이 계획은 한없는 기회, 무제한의 진보, 그리고 끝없는 생명의 영원한 목적이다. 그리고 그러한 비길 데 없는 생애의 무한한 보물들은 분투하고 있음에, 그것은 너희의 것이다!

32:5.8 (365.4) 영원의 목표가 앞에 있다! 신성 달성의 모험이 너희 앞에 놓여있다! 완전을 향한 경주가 시작되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달리는 길의 걸음걸음마다 내주하는 조절자의 안내에 그리고 모든 육체 위에 그토록 자유롭게 거저 퍼부어진 우주 아들의 선한 영의 인도에 의지하면서, 신앙과 신뢰의 경주를 달리게 될 모든 인간 존재의 노력에는 확실한 승리의 왕관의 빛이 빛날 것이다.

32:5.9 (365.5) [네바돈의 최극협의회에 일시적으로 배속되고
구원자별의 가브리엘에 의해 이 임무에 배정된 막강한
메신저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33 편 지역우주의 관리-행정

33:0.1 (366.1) 우주 아버지는 자신의 광대한 창조를 가장
확실하게 다스리는 반면, 지역우주 관리-행정에 있어서는
창조자 아들의 개인을 통하여 기능하신다. 아버지는
지역우주의 관리-행정적 관련사들에 있어서 다르게
개인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이 문제들은 창조자 아들과
지역우주 어머니 영에게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자녀들에게 맡겨져 있다. 지역우주에 대한 계획과 정책
그리고 관리-행정 조례들은 이 아들에 의해 형성되고
실행되는데, 그는 자신의 영 동료와 연관하여 집행 권한을
가브리엘에게 위임하고 사법 권한은 별자리 아버지들과
체계 주권자들 그리고 행성영주들에게 위임한다.

제 1 장. 네바돈의 미가엘

33:1.1 (366.2) 우리들의 창조자 아들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안에서 동시에 기원된 무한 정체성의 기원적
개념에서의 611,121번째 개인화구현이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이 611,121번째 신성과 무한성의 우주적 개념을 개인성구현 하고 있는 “오직하나 낳은 아들”이다. 구원자별에 있는 그의 본부는 빛의 삼중(三重) 맨션 안에 있다. 그리고 이 거주지는 그렇게 계층을 갖추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가엘이 지능적 창조체 실존의 세 위상 모두에서의 삶을 체험해 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 모론시아 그리고 물질적 위상들이다. 유란시아에서 있었던 그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증여와 연관된 이름 때문에, 그는 때로 그리스도 미가엘이라고도 불린다.

^{33:1.2 (366.3)} 우리의 창조자 아들은 영원한 아들, 우주 아버지 그리고 무한한 영의 실존적 파라다이스 연관-동료가 아니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일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주(主)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 만일 실재적으로 구원자별에 나타나고 네바돈에서 기능하였다면 그가 직접 현시하였을 모든 신성한 속성들과 힘들을 그의 영역 안에 소유한다. 미가엘은 그 외에 추가적인 힘과 권한을 소유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영원한 아들을 개인화 시킬 뿐만 아니라 이 지역우주에게 그리고 그 안에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 현존을 충분히 대표하고 실재적으로 체현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아들을 대표하기도 한다. 이 관계들은 창조자 아들로 하여금 미숙한 창조체 존재들과의 개인성 접촉을 그리고 진화적 우주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행정할 수 있는 모든 신성한 존재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다재다능하며 영향력 있게 한다.

33:1.3 (366.4) 우리의 창조자 아들은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이 구원자별에 개인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면 그가 행사할 것과 똑같은 영적으로 이끄는 힘, 영 중력(重力)을 지역우주 본부로부터 행사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 우주 아들은 또한 네바돈 우주에 대한 우주 아버지의 개인화구현이기도 하다. 창조자 아들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아들의 영적 기세들에 관한 개인성 중심이다. 창조자 아들들은 칠중 하느님의 막강한 시간-공간 속성들의 최종적인 힘-개인성 초점화이다.

33:1.4 (367.1) 창조자 아들은 우주 아버지의 대리 개인성구현이고, 영원한 아들의 신성(神性) 조화-협동이며, 무한한 영의 창조적 연관-동료이다. 우리들의 우주와 그 안에 있는 거주민이 사는 모든 세계들에게 주권자 아들은 모든 실천적인 의미들과 목적들에 대해

하느님이 된다. 그는 진화하는 필사자들이 총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파라다이스 신(神)들 전체를 개인화시킨다. 이 아들과 그의 동료 영은 너희의 창조자 부모이다. 너희에게 있어서 창조자 아들인 미가엘은 최극 개인성이다; 너희에게 있어서 영원한 아들은 초(超)최극—무한한 신(神) 개인성—이다.

33:1.5 (367.2) 창조자 아들의 개인 안에서 우리는, 만일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같이 구원자별에 제시되고 네바돈 우주의 관련사들에 대한 관리-행정에 참여하였더라면 이루어졌을 만큼의, 막강하고 효력이 있으며 친절한 하나의 통치자이자 신성한 부모를 소유하고 있다.

제 2 장. 네바돈의 주권자

33:2.1 (367.3) 창조자 아들들을 관찰하면 어떤 이들은 아버지를 더 닮고, 어떤 이들은 아들을 더 닮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의 무한한 부모들을 혼합적으로 닮은 것을 알게 된다. 우리의 창조자 아들은 영원한 아들을 더 많이 닮은 특색들과 속성들을 분명하게 현시한다.

33:2.2 (367.4)

미가엘은 이 지역우주를 조직하도록 선택되었으며, 그는 이곳에서 현재 최극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의 직접적인 힘은 파라다이스에 중심을 두는 선재(先在) 중력 순환회로들에 의해서 그리고 개인성의 소멸과 관련되는 모든 최종적 집행 심판들을 하는 초우주 정부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역할에 대한 유보에 의해서 제한된다. 개인성은 아버지가 단독으로 증여하시지만, 창조자 아들들은 영원한 아들의 허락을 받아서 새로운 창조체 설계를 시작하며, 그들은 그들의 영 연관-동료들의 협동작업을 받아 에너지-물질의 새로운 변환을 시도할 수 있다.

33:2.3 (367.5)

미가엘은 네바돈 지역우주에게 그리고 우주 안에서 파라다이스 아버지-아들의 개인화구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영의 지역우주 대표자, 창조 어머니 영이 그가 유란시아에서의 마지막 증여로부터 돌아오면서, 그리스도 미가엘에게 그녀 자신을 종속시켰을 때, 이로서 주(主) 아들은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에 대한 관할권을 획득하였다.

33:2.4 (367.6) 지역우주들의 창조자 아들들에 대한 신성한 사명활동자들의 이러한 종속은 이들 주(主)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신성(神性)을 유한하게 현시할 수 있는 개인적 저장소를 이루게 하며, 한편 미가엘들의 창조체-증여 가능한 체험들은 그들로 하여금 최극존재의 체험적 신성을 묘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우주들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존재들도 현재의 유한한 체험의 잠재들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다 소진해 오지 않았고, 그리고 우주들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존재들도 단독적인 주권을 위한 그러한 분별된-자격을 소유하지 않는다.

33:2.5 (367.7) 미가엘의 본부가 비록 공식적으로 네바돈의 수도인 구원자별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그는 자기 시간의 많은 부분을 별자리와 체계 본부들 그리고 심지어는 개별 행성들을 방문하는 일에 사용한다. 그는 주기적으로 파라다이스로 여행하고 자주 유버사에 들리는데, 그곳에서 그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 조연한다. 그가 구원자별에서 떠나 있을 때, 그의 자리는 가브리엘이 대신하는데, 그때 그는 네바돈 우주의 대리통치자로서 기능한다.

제 3 장. 우주 아들과 영

33:3.1 (368.1)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 전체에 널리 퍼지면서, 무한한 영은 창조자 아들과 창조적으로 협력하는 기법에 의해 충만한 개인성 본질특성들을 획득하는 전문화 된 하나의 초점화구현으로서 각각의 지역우주 본부로부터 기능한다. 지역우주를 고려할 때, 창조자 아들의 행정-관리적 권한은 최극이다; 신성한 사명활동자로서의 무한한 영은 완전하게 조화-협동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협조적이다.

33:3.2 (368.2) 구원자별의 우주 어머니 영, 네바돈의 통제와 관리-행정 속에 있는 미가엘의 연관-동료는 최극 영들의 여섯 번째 집단에 속하는데, 그 계층 중에서 611,121번째에 해당된다. 그녀는 미가엘이 파라다이스 의무에서 해방될 경우에 자진해서 그와 동행하였고 그의 우주 창조와 지배에 있어서 그 후로 항상 그와 함께 기능하였다.

33:3.3 (368.3) 주(主) 창조자 아들은 그의 우주에 대한 개인적 주권자이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세부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는 우주 영은 아들과 함께 공동-지휘자이다. 영이 아들을 항상 주권자 그리고 통치자로 인정하는 반면, 아들은 영을 영역의 모든 관련사에서 조화-협동하는

위치와 그리고 권한에서의 평등을 부여한다. 창조자 아들은 자신의 모든 사랑의 활동과 생명 증여에 있어서 항상 그리고 언제든지 완전하게 일관되며 모든-지혜의 그리고 언제나-신실한 우주 영에 의해 그리고 천사의 개인성들로 이루어진 그녀의 다양한 수행원들에 의해 훌륭하게 도움을 받는다. 그러한 신성한 사명활동자는 실체 안에서 영들과 영 개인성들의 어머니, 창조자 아들의 언제까지나 제시되고 있는 모든-지혜를 가진 충고자, 파라다이스 무한한 영의 신실하고 참된 현시활동이다.

33:3.4 (368.4) 아들은 자신의 지역우주 안에서 아버지로서 기능한다. 필사 창조체들이 납득하듯이, 영은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항상 아들을 도와주고 있는 우주의 관리-행정에 영존적으로 불가결한 존재이다. 폭동에 직면하여, 오직 아들과 그의 연관-동료 아들들만이 구원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 영은 반역에 대응하거나 권한을 방어할 책임을 결코 맡을 수 없지만, 그러나 아들이 악으로 더럽혀지거나 죄의 지배를 받는 세계들에서 권한을 유지하고 정부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는 체험을 함에 있어서 요구될 수 있는 각각의 모든 것에서, 영은 아들을 항상 지탱한다. 오직 아들만이 그들의 공동 창조의

작품을 구출할 수 있지만, 필사자 사람들의 복지와 그들의 신성한 부모들의 영광을 위해 그토록 신실하게 그리고 용맹스럽게 투쟁하는 영 조력자들, 하느님의 딸들로 이루어진 그녀의 광대한 집단과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끊임없는 협조 없이는 어떤 아들도 최종적인 성공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다.

33:3.5 (368.5) 창조자 아들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창조체 증여를 완성함에 따라, 신성한 사명활동자에게 있었던 주기적 고립의 불확실성들이 종결되며, 아들의 우주 조력자는 확실성과 통제 안에서 언제까지나 정착되기 시작한다. 집회를 이룬 무리들 앞에서 우주 영이 충실과 복종을 맹세하면서, 아들에 대한 종속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우주적으로 처음 하는 인정은, 축제들 중의 축제인 창조자 아들의 주(主) 아들로서의 즉위가 있을 때이다. 이 사건은 미가엘이 유란시아 증여 이후에 구원자별로 돌아왔을 때 네바돈에서 발생되었다. 이러한 획기적인 계기의 그 이전에는 우주 영이 우주 아들에 대한 종속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으며, 힘과 권한에서의 이러한 영에 의한 자발적인 포기 이후가 되고서야,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이 그의 손에 주어졌다.”라고 참되게 선포할 수 있었다.

33:3.6 (369.1) 창조 어머니 영에 의한 이 종속의 맹세가 있는 후에, 네바돈의 미가엘은 그가 자신의 영 동행자에게 영원히 의존함을 고귀하게 인정하였고, 자신의 우주 권역들에 대한 영 공동 통치자로 세우면서 그들의 모든 창조체들에게 그들이 아들에게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에게도 충성을 맹세하도록 요구하였다; 최종적인 “동등성의 선언”이 제정되어 선포되었다. 아들이 비록 이 지역우주의 주권자이었지만, 그는 신성한 특성의 개인성과 속성들로 이루어진 모든 자질에 있어서 자신과 영의 동등성의 사실을 세상에 공표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공간 세상의 낮은 창조체들에게도 가정 조직과 통치를 위한 초월적 원형틀이 되었다. 이것은, 정말로 그리고 진실로, 가족에서의 그리고 자발적 결혼의 인간 제도에서의 높은 이상이다.

33:3.7 (369.2) 아들과 영은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가족의 아들과 딸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것처럼 우주를 주재하고 있다. 우주 영을 창조자 아들의 창조적 동행자로 언급하고 그리고 영역들의 창조체들을 그들의 아들과 딸들로—광대하고 영광스러운 가족,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책임과 끝없는 보살핌이 있는 한 가족으로—여기는 것이 아주 어색한 것이 아니다.

33:3.8 (369.3) 아들은 우주 자녀에 대한 필연적인 창조를 시작하는 반면, 영은 동일한 이 어머니 영의 지도와 안내를 받아 돌보고 협력하는 영 개인성들의 수많은 계층들을 실존하도록 하는 일에 독자적으로 책임을 진다. 우주 개인성들의 다른 유형들을 창조함에 있어서, 아들과 영은 모두 같이 기능하며, 어떤 창조적 활동에서도 다른 한 편의 조언과 허락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제 4 장. 가브리엘—우두머리 집행자

33:4.1 (369.4) 빛나는 새벽별은 창조자 아들과 무한한 영의 지역우주 현시활동이 착상한 개인성의 정체성과 이상에 대한 최초 개념의 개인성구현이다. 창조적 관계적-연합의 결속 안에서 창조자 아들과 어머니 영이 연합을 이루기 전인, 지역우주의 초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들과 딸로 이루어진 그들의 다양한 가족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성한 이 두 개인들의 이러한 초기이자 자유로운 관계적-연합에 대한 최초의 공동

행위의 결과로 아들과 영의 최고 영 개인성, 빛나는 새벽별의 창조가 이루어졌다.

33:4.2 (369.5) 지혜와 장엄의 그러한 존재는 오직 하나만이 각각의 지역우주에 생겨난다.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은 자신들과 동일한 신성(神性) 안에서 무제한적 숫자의 아들들을 창조할 수 있고 또 사실 그렇게 하지만, 그러한 아들은 무한한 영의 딸과의 연합 안에서 각각의 우주에서 오직 하나의 빛나는 새벽별을 창조할 수 있는데, 그는 그들과 비슷한 존재이고 그들의 창조적인 특권들을 제외한 그들의 병합된 본성들을 자유롭게 누린다. 구원자별의 가브리엘은 신(神)의 속성들에서는 현저하게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의 본성에 있어서는 우주 아들과 비슷하다.

33:4.3 (369.6) 새 우주의 그 부모들의 첫 태생인 이 존재는 어느 한 쪽의 선조에게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는 놀라운 여러 특색들을 소유하는 독특한 개인성, 전에 없었던 다재다능함과 상상하지 못하였던 재능을 가진 존재이다. 숭고한 이 개인성은 영의 창조적 상상력과 병합된, 아들의 신성한 의지를 포용한다. 빛나는 새벽별의 생각과 행동은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 둘 모두를 충분히 항상 대변할 것이다. 그러한 존재는 영적인 세라핌천사 무리들과 물질적인 진화 의지적 창조체들 둘 모두를 널리 납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정심 가득한 접촉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33:4.4 (370.1) 빛나는 새벽별은 창조자는 아니지만, 놀랄만한 행정-관리자인데, 창조자 아들의 개인적인 행정-관리적 대리자다. 아들과 영의 창조와 생명 수여를 제외하면 가브리엘의 현존 없이 중요한 우주 절차들이 협의된 일이 결코 없다.

33:4.5 (370.2) 구원자별의 가브리엘은 네바돈 우주의 우두머리 집행자이며 그것의 관리-행정에 관한 모든 집행적 요청들에 대한 중재자이다. 이 우주 집행자는 자신의 일을 위한 재능을 충만하게 자질로서 부여받아 창조되었지만, 우리 지역우주의 성장과 진화와 관계된 체험을 획득하였다.

33:4.6 (370.3) 가브리엘은 지역우주 안에서 비(非)개인적 관련사들과 관계되는 초우주 명령들을 집행하는 우두머리 관리이다.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판결이 내려지는,

집단 심판과 섭리시대 부활들에 관계되는 대부분의 문제들 역시 가브리엘과 그의 참모에게 실행이 위임되어 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초우주와 지역우주 둘 모두의 통치자들의 연관 우두머리 집행자다. 그는 자신의 지시에 따르는 행정-관리적 보좌관들로 이루어진 유능한 무리단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업무를 위해 창조되었고, 진화적인 필사자들에게 계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보좌관들 이외에, 가브리엘은 네바돈에서 기능하는 전체 또는 일부의 천상의 존재 계층들을 동원할 수 있으며, 또한 그는 “하늘의 무리”—천군(天軍)—의 우두머리 명령자이기도 하다.

33:4.7 (370.4) 가브리엘과 그의 참모는 선생들이 아니며; 행정-관리자들이다. 그들은 미가엘이 창조체 증여로 육신화 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정상적인 업무에서 떠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증여들의 기간 동안 가브리엘은 육신화한 아들의 뜻을 항상 따랐으며, 연합으로 늘 계신이의 협조를 받아 후대 증여들 기간 동안의 우주 관련사들에 대한 실재적 지도자가 되었다. 가브리엘은 미가엘의 필사 증여 이후로 언제까지나

밀접하게 유란시아의 역사와 발전으로 정체성을 확인 해왔다.

33:4.8 (370.5) 증여 세계들에서 그리고 일반적 부활 그리고 특별 부활 명령이 내려지는 시기들을 제외하면, 필사자들은 지역우주 창조의 행정-관리적 업무에 부름을 받기 전에는 지역우주를 통과하여 상승하는 동안 그를 거의 만나지 못할 것이다. 어떤 계층이나 계급이든지 행정-관리자들로써, 너희는 가브리엘의 지도를 받게 될 것이다.

제 5 장. 삼위일체 대사

33:5.1 (370.6)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개인성들의 관리-행정은 초우주들의 통치와 함께 끝난다. 지역우주들의 특징은 이원적(二元的) 감독, 아버지-어머니 개념의 시작이다. 우주의 아버지는 창조자 아들이다; 우주의 어머니는 신성한 사명활동자, 지역우주 창조 영이다. 아무튼, 각각의 지역우주는 중앙우주와 파라다이스로부터 특정한 개인성들의 현존을 받는 축복을 누린다. 네바돈에서 이 파라다이스 집단의 우두머리 중에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대사—구원자별의 임마누엘—는 네바돈 지역우주에 배정된 연합으로 늘 계신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높은 이

삼위일체 아들은 창조자 아들의 법정에 보내진 우주 아버지의 개인적 대리자기도 한데; 그래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33:5.2 (370.7) 최극 삼위일체 개인성들의 여섯 번째 계층 중에서 611,121번인 구원자별의 임마누엘은 살아있는 모든 창조체들의 경배와 찬미를 거절하는 숭고한 존엄성의 존재이며 장엄한 겸손의 존재이다. 그는 자신의 형제 미가엘에 대한 복종을 결코 선언한 적이 없는 전체 네바돈에서의 유일한 개인성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주권자 아들에게 충고자의 역할을 한다. 창조자 아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는 높은 우주 협의회를 주관할 수 있지만 요청된 바를 제외하고는 우주의 집행적 관련사들에 다른 방법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33:5.3 (371.1) 네바돈에 온 파라다이스의 이 대사는 지역우주 정부의 지배권에 종속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별자리들의 본부에서 봉사하면서 그와 연락하는 형제들, 충심으로 늘 계신이의 감독을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화하는 지역우주의 집행적인 관련사들에 대해 강권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33:5.4 (371.2) 충심으로 늘 계신이는 연합으로 늘 계신이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요청되지 않는 한 별자리 통치자들에게 결코 충고를 하거나 원조를 제안하지 않는다. 별자리들에 보내진 이 파라다이스 대사들은 지역우주들에서 충고의 직무를 담당하는 삼위일체 고정아들들의 최종적인 개인적 현존을 대표한다. 별자리들은 지역 체계들보다 더 밀접하게 초우주 관리-행정에 관계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지역우주에서 출생한 개인성들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관리-운영된다.

제 6 장. 일반적인 관리-행정

33:6.1 (371.3) 가브리엘은 네바돈의 우두머리 집행자이며 실재적인 행정-관리자이다. 미가엘이 구원자별을 떠나는 것이 우주 관련사들의 질서 있는 행위를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 미가엘이 없는 동안, 최근에 파라다이스에서 오르본톤 주(主) 아들의 재결합에서의 임무에서 그런 것처럼, 가브리엘은 우주의 대리통치자가 된다. 그러한

때에 가브리엘은 모든 주요 문제들에 대해 항상
구원자별의 임마누엘의 조언을 받으려고 한다.

33:6.2 (371.4) 아버지 멜기세덱은 가브리엘의 수석 보좌관이다.
빛나는 새벽별이 구원자별에 없을 때, 그의 임무들은
지원적인 이 멜기세덱 아들에 의해 대행된다.

33:6.3 (371.5) 우주의 다양한 부차적 관리-행정 당국은 어떤
특별한 책임을 그들에게 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체계
정부는 그것에 소속된 행성들의 복지를 보살피는 반면,
살아있는 존재들의 육신적인 지위, 생물학적 문제들에
더욱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다. 그 다음으로, 별자리
통치자들은 서로 다른 행성들과 체계들에 보급된 사회적
상황과 행정적 상황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별자리
정부는 주로 통일과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또 더 높이
올라가면, 우주 통치자들은 영역들의 영적인 지위에 더
많이 관여한다.

33:6.4 (371.6) 대사(大使)들은 사법 명령에 의해 지정되고 다른
우주들에 대해 우주들을 대표한다. 영사들은 다른
별자리에게 그리고 우주 본부에게 별자리들을 대표 한다;
그들은 입법 명령에 의해 지정되고 오직 지역우주의 범위

안에서만 기능한다. 입회자들은 다른 체계들에게 그리고 별자리 수도에서 체계를 대표하도록 체계 주권자의 집행 명령에 의해 임명되며, 그들 역시 지역우주의 한계 안에서만 기능한다.

33:6.5 (371.7) 방송이 구원자별로부터 체계 본부, 별자리 본부, 그리고 각각의 행성들에게로 동시에 보내진다. 보다 높은 계층의 천상의 존재들은 우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들의 동료들과 소식을 나누게 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주 방송은 그들의 영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거주민이 사는 모든 세계들에게 확장된다. 행성들 사이의 상호통신은 영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세계들만이 부인되고 있다.

33:6.6 (372.1) 별자리 방송은 별자리의 본부로부터 별자리 아버지들의 우두머리에 의해 주기적으로 보내어진다.

33:6.7 (372.2) 연대기(年代記)는 구원자별에 있는 특별한 집단의 존재들에 의해 계산되고 평가되며 수정된다. 네바돈의 표준일은 유란시아의 시간으로 18일 6시간 2분 30초에 해당한다. 네바돈의 1년은 유버사 순환회로에 관계된 우주

진동의 시간 단위로 구성되며 표준 우주 시간으로 100일과 같은데, 유란시아 시간으로는 약 5년에 해당된다.

33:6.8 (372.3) 구원자별로부터 방송되는 네바돈 시간은 이 지역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자리들과 체계들에게 표준이 된다. 각각의 별자리는 네바돈 시간에 의해 그 관련사들을 수행하지만, 체계들은 개별 행성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 자신의 연대기를 유지한다.

33:6.9 (372.4) 사타니아에서의 하루는, 예루셈에서 계산된 것처럼, 유란시아 시간으로 3일보다 약간(1시간, 4분, 15초) 짧다. 이 시간들은 일반적으로 구원자별 시간 또는 우주 시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타니아 시간 또는 체계 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표준시간은 우주 시간이다.

제 7 장. 네바돈의 법정

33:7.1 (372.5) 주(主) 아들 미가엘은 오직 세 가지 일들 즉: 창조, 유지, 돌봄에만 최극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그는 우주의 사법 업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창조자들은 자기 창조체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결코 앉지 않으며, 그것은 높은 훈련과 실재적인 창조체 체험을 가진 창조체들의 독점적인 기능이다.

33:7.2 (372.6) 네바돈의 전체 사법 기능구조는 가브리엘의 감독 아래에 있다. 구원자별에 위치한 고등법원들은 체계 법원들로부터 올라오는 항소 사건들과 일반적인 우주 유입 문제들로 바쁘게 지내고 있다. 이 우주 법원들에는 70개의 지부가 있으며, 그것들은 각각 10개 분야들로 구성된 일곱 부서로 기능한다. 재판하는 모든 문제들에는 완전 선재자들 중 한 명의 판사와 선재 체험을 가진 한 명의 집행관으로 구성된 이원적(二元的) 직책이 주재한다.

33:7.3 (372.7) 재판에 관하여, 지역우주 법원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취급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33:7.4 (372.8) 1. 지역우주의 관리-행정은 창조, 진화, 유지, 그리고 돌보는 일과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주 법정은 영원한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는 사건들을 통과시킬 권한이 없다. 이것은 그것이 유란시아에서 맞이하는 자연적인 죽음과 관계가 없지만, 만일 계속되는 존속, 영원한 삶의 권리에 대한 문제가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반드시 오르본톤의 법정으로 회부되며, 만일 그 개별존재에게 불리하게 결정이 되면, 소멸에 대한

모든 판결문들은 초(超)정부의 통치자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그들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집행된다.

33:7.5 (372.9) 2. 아들들로서의 권한과 그들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하느님의 지역우주 아들들의 불이행 또는
변절도 아들의 법정에서 결코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한
오해는 즉시 초우주 법정으로 이관될 것이다.

33:7.6 (372.10) 3. 영적 고립에 뒤이어 일어나는 지역 창조에서의
충만한 영적 지위의 동료관계에 이르는
지역우주—지역체계와 같은—의 모든 법령 개정과 관한
재허가의 문제는 초우주의 고등 의회에 의해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33:7.7 (373.1) 다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는 구원자별의
법원들이 최종적이며 최극의 권한을 갖는다. 그들의
결정과 선고에 대해 항소하거나 피할 길은 전혀 없다.

33:7.8 (373.2) 유란시아에서는 인간적 투쟁들이 불공평하게
판결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겠지만, 우주에서는
공의(公義)와 신성한 공정성이 지배한다. 너희는 질서가

잘 잡힌 우주에서 살고 있으며, 너희는 곧 공정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비롭게 취급받게 될 것이다.

제 8 장. 입법 기능과 집행 기능

33:8.1 (373.3) 네바돈의 수도인 구원자별에는, 진정한 입법기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 본부 세계들은 주로 판결에 관계한다. 지역우주의 입법 의회들은 100개 별자리들의 본부에 위치하고 있다. 체계들은 주로 지역 창조계들에 대한 집행적 그리고 행정-관리적 작업에 관계한다. 체계 주권자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은 별자리 통치자들의 입법 명령들을 실행하며 우주의 고등법원들의 사법 판결들을 집행한다.

33:8.2 (373.4) 우주 본부에서는 진정한 입법 기능이 실행되지 않는 반면, 구원자별에서는 다양한 자문회의 그리고 연구회의들이 기능을 발휘하는데, 그들의 범위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되고 수행된다. 어떤 것들은 영구적이고; 나머지는 그들의 목표 성취에 따라 해체된다.

33:8.3 (373.5) 지역우주의 최고협의회는 각 체계로부터 3명의 위원들과 각 별자리로부터 7명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고립된 체계들은 이 회의에 대표자를 보내지 못하지만,

참여하여 거기에서 협의되는 모든 것들을 연구하도록 관찰자를 보낼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다.

33:8.4 (373.6) 최극 신성권한의 100개 협의회들이 구원자별에 위치해 있다. 이 협의회들의 의장들은 가브리엘의 즉각적인 활동 내각을 구성한다.

33:8.5 (373.7) 고등 우주 자문협의회들의 모든 판결들은 구원자별 사법 기관들 또는 별자리들의 입법 의회들에게 소속되어 있다. 이 고등 협의회들은 자기들의 권고를 강요할 수 있는 힘이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만약에 그들의 충고가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에 기초를 둔 것이라면, 네바돈 법정이 실행 판결을 내리지만, 만일 그들의 충고가 지역 상황 또는 응급 상황에 맞추어져야만 한다면, 그것들은 신중한 법령 제정을 위해 별자리의 입법 의회들에게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행을 위해 체계 권한자들에게 내려보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고등 협의회들은 실체 안에서 우주의 초(超)입법기관들이지만, 그들은 법령 제정권과 실행 권한 없이 기능한다.

33:8.6 (373.8) 우리가 "법원"과 "의회"라는 말로 우주 관리-행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 영적 활동행위는

상응하는 이름들이 내포하는 유란시아의 매우 원시적이고 물질적인 활동들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납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33:8.7 (373.9) [네바돈의 천사장들의 우두머리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34 편 지역우주 어머니 영

34:0.1 (374.1) 창조자 아들이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에 의해 개인성구현되면, 그 다음에 무한한 영은 이 창조자 아들과 함께 우주의 영역으로 갈 자신의 새롭고도 독특한 대표자를 개별존재화 시키며, 처음에는 물리적 조직 속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새롭게 투사된 우주의 창조체들에 대한 사명활동과 창조에서 그의 동행자가 된다.

34:0.2 (374.2) 창조 영은 창조자 아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실체와 영적 실체 둘 모두에게 반응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지역우주를 관리-행정하는 일에 조화-협동하고 연관한다.

34:0.3 (374.3) 이들 딸 영은 무한한 영의 본질을 갖지만, 물리적 창조와 영적 사명활동의 일에 동시에 기능할 수 없다. 물리적 창조에 있어서 우주 아들이 원형틀을 제공하는 반면 우주 영은 물리적 실체들의 물질화를 일으킨다. 아들은 힘의 설계들에 작용하지만, 영은 이 에너지 창조계들을 물리적 실체들로 변환시킨다. 무한한 영의 이 초기 우주 현존을 개인으로 묘사하는 것이 다소 무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자 아들에게 있어서 영 연관-동료는 개인적이며 항상 하나의 별개 개별존재로 기능한다.

제 1 장. 창조 영의 개인성구현

34:1.1 (374.4) 별과 행성 군(群)의 물리적 조직의 완성 그리고 초우주 힘 중심들에 의한 에너지 순환회로의 설립이 이루어진 후, 그의 지역우주 창조적 초점화구현을 통한 그리고 그 지도 하에 작동하는 무한한 영의 대리자들에 의한 이 원시적 창조 작업에 뒤이어서, 새롭게 조직된 우주 안에 생명이 그 다음으로 계획되어야 한다는 미가엘 아들의 선언이 반포된다. 이러한 의지의 천명을 파라다이스가 승인함에 따라,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 승인의 반응이 나타나며, 뒤이어 신(神)들의 영적

광채안에서, 자신의 초우주에서 새로운 이 창조를 조직화하고 있는 주(主) 영의 사라짐이 뒤 따른다. 한편으로는 다른 주(主) 영들이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이중양 거점 근처로 접근하며, 그 뒤를 이어서, 신(神)-포용된 주(主) 영이 자신의 동료들에게 인지되면서 창발 될 때, "초기 분출"이라고 알려진 일이 발생한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 섬광, 관계된 초우주 본부와 같이 멀리에서도 분명하게 식별될 수 있는 현상이다; 거의 납득되지 않는 이 삼위일체 현시활동과 동시에, 관계된 지역우주 안에 거주하는 무한한 영의 창조 영 현존과 힘의 본성에 괄목할만한 변화가 발생한다. 이들 파라다이스 현상에 응답하여, 창조자 아들의 바로 그 현존 안에서 무한한 영의 새로운 개인적 대표가 즉각적으로 개인성구현 된다. 그가 바로 신성한 사명활동자이다. 창조자 아들의 개별존재화된 창조 영 조력자는 그의 개인적인 창조적 연관-동료, 지역우주 어머니 영이 되었다.

34:1.2 (375.1) 공동 창조자의 새로운 이 개인적 분리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 지역우주의 모든 세계들과 존재들에게 보급하도록 수립된 흐름들과 규정된 영 힘의 순환회로들과 영적 영향력이 시작된다. 실체 안에서, 이

새롭고 개인적인 현존은 물리적인 우주 조직에 대한
아들의 초기 작업에 있어서 그의 선재(先在)하는 그리고
보다 덜 개인적인 연관-동료의 변환이다.

34:1.3 (375.2) 이것은 몇 마디로 엄청난 드라마를 진술한
것이지만, 이것은 이들 중대한 활동행위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한다. 그것들은
순간적이고 불가해한 것이고 이해할 수 없다; 기법과
과정의 비밀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속에 감추어져
있다. 유일하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다: 순전히
물리적인 창조 또는 조직이 이루어지는 동안
지역우주에서의 영 현존은 파라다이스 무한한 영의
영으로부터 불충분하게 차별화되었다; 반면에,
하느님들의 비밀스런 포옹으로부터 감독하는 주(主) 영이
다시 나타나고 영적 에너지의 섬광을 뒤흔든 후에, 무한한
영과의 변화하는 연락에 있었던 그 주(主) 영의 개인적
유사 형태로 무한한 영의 지역우주 현시활동이 갑자기
그리고 완벽하게 변한다. 그리하여 지역우주 어머니 영은
천문적 사법권을 갖는 초우주의 주(主) 영의 그것으로
가미된 개인적 본성을 획득한다.

34:1.4 (375.3) 무한한 영의 개인성구현된 현존, 지역우주의 창조 어머니 영이 사타니아에서는 신성한 사명활동자로 알려져 있다. 모든 실천적 의도들과 영적 목적들에게 신(神)의 이 현시활동은 신성한 개별존재, 영 개인이다. 그리고 그녀는 창조자 아들에 의해 그렇게 인정되고 존중된다. 우리 지역우주에서 영이 그 결과로서 이 아들에 대하여 정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이 그에게 위탁되었다.”라고 알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지역화와 개인성구현을 통해서였다.

제 2 장.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본성

34:2.1 (375.4) 생명 창조의 시기에 현저한 개인성 탈바꿈을 겪었음으로, 신성한 사명활동자는 그때부터 개인으로 기능하며 그들의 지역 창조의 광대한 관련사들의 계획과 관리에서 창조자 아들과 곧바로 개인적인 방법으로 협조한다. 많은 우주 존재 유형들에게, 무한한 영에 대한 이 설명조차도 최종적인 미가엘 증여 이전(以前)의 시대기간에는 전적인 개인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창조자 아들이 주(主) 아들의 주권적 권한자로 상승된 이후에는, 창조 어머니 영이 모든 접촉하는

개별존재들에 의해 개인적으로 감지될 수 있도록 개인적
본질특성이 증강된다.

34:2.2 (375.5) 우주 영은 창조자 아들과의 최초 관계적-
연합에서부터, 반(反)중력의 충분한 자질을 포함하면서,
무한한 영의 물리적-통제 속성 전체를 소유한다. 우주 영은
개인적 지위를 달성함에 따라 무한한 영이 직접
제시되었을 경우와 같이 지역우주에서 충분하고 완벽한
마음 중력 통제를 행사한다.

34:2.3 (375.6) 각각의 지역우주에서 신성한 사명활동자는
파라다이스의 일곱 주(主) 영들 중의 하나에 체현된 무한한
영의 본성과 고유 특징들에 따라 기능한다. 모든 우주
영들은 기본적인 균일성 있는 반면, 일곱 주(主) 영들 중의
하나를 통한 그들의 기원에 따라 결정된 기능의 다양성도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기원의 차이는 다른 초우주들에서
지역우주 어머니 영들의 기능상 다양한 기법들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모든 본질적인 영적 속성들에 있어서 이
영들은 서로 동일하며, 초우주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똑같이 영적이고 전적으로 신성하다.

34:2.4 (376.1) 창조 영은 세계들의 창조체들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창조자 아들과 공동 책임을 가지며 이들 창조체를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모든 노력에서 아들에게 결코 실망을 주지 않는다. 생명은 창조 영의 대리자를 사명활동되고 유지된다. “당신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주셨고, 그들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이 땅의 모습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34:2.5 (376.2) 지능 창조체들의 우주를 창조함에 있어서 창조 어머니 영은 처음에는 우주 완전성의 구체에서 기능하며, 빛나는 새벽별의 산출에 아들과 협력한다. 그 후에 행성들의 창조된 존재들의 계층에 영의 후손들이 점점 더 접근하며, 마치 아들이, 영역들의 필사자들과 실재적으로 접촉이 멜기세덱들로부터 물질아들들에 이르기까지 낮아지는 것과 같다. 필사 창조체들의 후기 진화에 생명운반자 아들이 영역에 존재하는 유기체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물질적 몸체를 제공하며, 반면에 우주 영은 “생명의 호흡”을 제공한다.

34:2.6 (376.3) 대우주의 일곱 번째 부분이 여러 면에서 더디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생각 깊은

탐구자들은 앞으로 오는 시대들에서 굉장히 잘 균형을 이룬 창조의 진화를 내다본다. 우리가 오르본톤에서 이러한 고도의 균형을 예견하는 것은 이 초우주를 통솔하는 영이 높은 곳의 주(主) 영들의 우두머리기 때문이며, 영원한 세 신(神)들 모두의 특색과 성격들에 대한 균형 잡힌 연합과 완전한 조화-협동을 체현하는 영 지능체이기 때문이다. 다른 부분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느리고 뒤떨어져 있지만, 영원한 미래 시대의 어느 시점에 초월적 발전과 전례 없는 성취가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제 3 장. 시간과 공간에서의 아들과 영

34:3.1 (376.4) 영원한 아들뿐만 아니라 무한한 영도 시간 또는 공간의 어느 것에 의해서도 제한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들의 후손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34:3.2 (376.5) 무한한 영은 모든 공간에 널리 퍼지며 영원의 순환계 속에 거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후손들과 이루는 그들의 개인적 접촉에 있어서는, 무한한 영의 개인성들이 공간에 대해서는 보다 덜하다 하더라도 현세적인 요소들을 종종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음

사명활동들 대부분은 공간을 무시하지만 우주 실체의 다양한 차원들의 조화-협동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 지연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단독 메신저는 어느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데에 시간이 실재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간과 실질적으로 무관하다; 비슷한 실존개체들이 너희들에게 알려졌다.

34:3.3 (376.6) 개인적 특권에 있어서 창조 영은 전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간과 무관하지만, 시간과는 그렇지 않다. 별자리 또는 체계 본부에는 그러한 우주 영의 분화된 개인적 현존이 없다. 그녀는 자신의 지역우주 전체를 통하여 동일하게 그리고 널리 존재하며, 한 세계에서 다른 어떤 곳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개인적으로 현존한다.

34:3.4 (376.7) 시간 요소를 고려할 경우에만, 창조 영은 자신의 우주 직무에서 언제나 제한을 받는다. 창조적 아들은 자신의 우주에 두루 순간적으로 활동하지만; 창조 영은 우주적 마음의 직무에 있어서 시간을 고려해야하며 우주 아들의 개인적 특권을 그녀가 의식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자신을 이용하게 할 때는 예외이다. 순수-영

기능에 있어서 창조 영은 우주 반영성의 신비한 기능에 협조할 때와 같이 역시 시간과 무관하게 활동한다.

34:3.5 (377.1) 영원한 아들의 영-중력 순환회로가 시간과 공간 둘 모두에 무관하게 작동하더라도, 창조자 아들들의 모든 기능들은 공간 한계들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만약에 진화하는 세계들의 활동행위들이 제외된다면, 이 미가엘 아들들은 상대적으로 시간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창조자 아들은 시간에 의해서는 방해받지 않지만, 공간에 의해서는 제한 된다; 그는 동시에 두 장소에 직접 존재할 수 없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그 자신의 우주 안에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활동하고 초우주에서 반영성에 의해 실천적으로 그러하다. 그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아들과 직접적으로 교통한다.

34:3.6 (377.2) 신성한 사명활동자는 창조자 아들의 이해심 있는 조력자이고 공간에 관한 그의 선천적인 한계들을 극복하고 보상하도록 해주는데, 왜냐하면 이 두 존재들이 행정-관리적 연합 속에서 기능할 때 그들이 자신들의 지역 창조의 한계 속에서 시간 과 공간에 실천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우주 전반을

실천적으로 관찰할 때,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은 대개 시간과 공간 둘 모두에 독립적으로 기능하는데 각자에게 다른 하나의 시간과 공간 해방이 항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34:3.7 (377.3) 오직 절대 존재들만이 절대의미에서 시간 및 공간과 무관하다.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 두 존재에 종속된 개인들은 시간과 공간 둘 모두의 지배를 받는다.

34:3.8 (377.4) 창조 영은 "공간 의식"을 갖게 될 때, 그녀는 제한된 "공간 권역"을 그녀의 것으로서의 인지를 준비하며, 영역에서는 그녀가 다른 모든 공간에서는 제약을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공간적으로 자유롭게 된다. 존재는 존재의 의식의 영역 안에서만 자유롭게 선택하고 활동할 수 있다.

제 4 장. 지역우주 순환회로들

34:4.1 (377.5) 네바돈 지역우주 안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영 순환회로들이 있다:

34:4.2 (377.6) 1. 창조자 아들의 증여의 영, 위로자, 진리의 영.

34:4.3 (377.7) 2.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영 순환회로, 성령

34:4.4 (377.8)

3. 다소 통합된 활동들 그러나 일곱 보조 마음-영들의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는, 지능체-사명활동 순환회로.

34:4.5 (377.9)

창조자 아들들은 파라다이스의 일곱 주(主) 영들의 그것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 우주 현존의 영을 자질로서 부여받는다. 이것이 진리의 영인데 그것은 증여 아들이 그러한 하나의 구체에 대한 영적 직함을 받아들인 후에 그에 의해 세계에 베풀어진다. 증여된 이 위로자는, 지역우주에서 진리의 개인화구현인 그를 향한 모든 진리 탐구자들을 영원히 이끄는 영적 기세다. 이 영은 창조자 아들의 선천적인 자질인데, 대우주의 주(主) 순환회로들이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개인성 현존으로부터 유래된 것과 같이 그의 신성한 본성으로부터 창발 한다.

34:4.6 (377.10)

창조자 아들은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 그의 개인적 현존은 지역우주 또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영의 기능들은 방해받지 않으며, 이는 신성한 이 현존은 창조자 아들의 개인성으로부터 유래된 반면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개인 속에 기능적으로 중심을 두기 때문이다.

34:4.7 (378.1) 그러나 우주 어머니 영은 지역우주 본부 세계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창조자 아들의 영은 아들의 직접적인 현존과 상관없이 기능할 수 있고 또 기능하지만, 그녀의 개인적 영과는 그렇지 않다.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성령은 그녀의 직접적인 현존이 구원자별에서 떠나게 될 때에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녀의 영 현존은 우주 본부 세계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며, 바로 이러한 사실이 창조자 아들의 영이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상관없이 기능할 수 있게 한다. 우주 어머니 영은 진리의 영의 우주 초점과 중심으로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개인적 영향, 성령으로 활동한다.

34:4.8 (378.2) 창조자 아버지-아들과 창조 어머니 영은 둘 모두 자신들의 지역우주 자녀들의 마음 자질에 다양하게 기여한다. 그러나 창조 영은 자신이 개인적 특권을 자질로서 부여받기 전에는 마음을 증여하지 않는다.

34:4.9 (378.3) 지역우주 안에 있는 개인성의 초(超)진화 계층들은 초우주 마음 원형들의 지역우주 유형을 자질로서 부여받는다. 진화적인 생명인 인간과 인간이하 계층들은 마음 봉사사명의 보조 영 유형들을 자질로서 부여받는다.

34:4.10 (378.4)

일곱 보조 마음-영들은 지역우주의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창조이다. 이들 마음-영들은 성격에서는 비슷하지만, 힘에서는 다양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어머니 창조자로부터 따로 떨어진 개인성들로 간주될 수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우주 영의 본성을 비슷하게 갖고 있다. 일곱 보조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름들이 주어졌다: 지혜의 영, 경배의 영, 조언의 영, 지식의 영, 용기의 영, 납득의 영, 그리고—신속한 감지력—직관의 영이다.

34:4.11 (378.5)

이것들은 선지자가 환상의 상징 속에서 보았던 “보좌 앞에서 불타는 등불들과 같은”, “하느님의 일곱 영들”이다. 그러나 그는 이 일곱 보조 마음-영들의 4명과 20명의 파수자들의 좌석들은 보지 못하였다. 이 기록은 두 가지 모습이 혼동된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우주 본부에 속하고 다른 하나는 체계 수도에 속한다. 4명과 20명의 장로들의 좌석들은 예루셈에 있는,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로 이루어진 너희의 지역체계의 본부들이다.

34:4.12 (378.6)

그러나 요한이 기록한: “보좌로부터 번개와 천둥과 음성들이 나왔다.”—지역체계들에게 보내지는

우주 방송들—는 구원자별에 대해서였다. 또한 그는 지역우주의 방향지도 통제 창조체들, 본부 세계의 살아있는 나침반들을 보았다. 네바돈에 있는 이 방향지도 통제는 구원자별의 네 통제 창조체들에 의해 유지되며, 그들은 우주 흐름들 위에 작용하고 첫 번째로 기능하는 마음-영, 직관의 보조자, “신속한 납득”의 영에 의해 훌륭하게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네 창조체들—짐승으로 불렸던—에 대한 설명은 유감스럽게도 망쳐진 것이었다; 그들은 견줄 데 없는 아름다움과 멋진 형태를 하고 있다.

34:4.13 (378.7) 나침반의 네 지점들은 네바돈의 생명 안에서 보편적이며 선천적이다. 살아있는 모든 창조체들은 이러한 방향지도 흐름들에 대해 민감하고 반응적인 신체 기관들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 창조체 창조계들은 우주에 두루 각각의 행성에 이르기까지 중복되어 있는데, 세계들의 자력(磁力)과 관련되어, 동물 유기체의 극히 미세한 몸체들의 집단들을 그렇게 활성화하여 이들 방향 세포들이 항상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게 한다. 그리하여 방위 감각은 우주의 살아있는 존재들 속에 언제까지나 고정되어 있다. 이 감각은 인류에게 의식적 소유로서

전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몸체들은 이 글이
쓰여 질 무렵에 유란시아에서 최초로 관찰되었다.

제 5 장. 영의 사명활동

34:5.1 (379.1) 신성한 사명활동자는 창조자 아들의 일곱 번째
증여가 있기까지 생명의 형성과 새로운 존재들의
계층들의 창조에 그와 협동하며, 그 다음에, 그가 우주의
충만한 주권자로 상승된 후에는, 세계 사명활동과 행성
진보의 미래업무에서 아들 및 아들의 증여된 영과 계속
협동한다.

34:5.2 (379.2) 거주되는 세계들에서 영은 진화적 발전의 일을
시작하며, 영역의 생명이 없는 물질로 시작하여, 처음에는
식물 생명을 자질로서 부여하고, 그 다음에는 동물
유기체들을, 그 다음에는 인간 실존의 최초 계층들을
증여한다, 그리고 계속되는 각각의 수여는 최초이자
원시적인 단계들로부터 의지 창조체들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행성 생명의 진화적 잠재가 더욱 드러나는
일에 기여한다. 영의 이러한 노력은 일곱 보조자들, 약속의
영들, 진화하는 행성들의 통합하고 조화-협동하는 영-
마음을 통하여 주로 이행되었으며, 사람의 종족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개념들과 영적인 이상들로 향하도록
언제까지나 그리고 연합하여 인도한다.

34:5.3 (379.3) 필사자 사람은 진화 창조체들의 순전히 동물적인
마음이 경배와 지혜의 보조자들에 대한 접수 능력을
개발할 때 마음과 관련하여 영의 사명활동을 처음
체험한다.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보조자의 이
사명활동은 영적인 사명활동의 문지방을 마음 진화가
넘어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경배-와
지혜-기능의 그러한 마음들이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영적인 순환회로들 안에 포함된다.

34:5.4 (379.4) 마음이 성령의 사명활동과 함께 그렇게 자질로서
부여될 때, 그것은 우주 아버지의 영적 현존—생각
조절자—을 선택할 수 있는(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능력을 소유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모든
마음들이 생각 조절자들을 받을 준비를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증여된 아들이 모든 필사자들에 대한 행성
사명활동을 위하여 진리의 영을 해방시킬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다. 진리의 영은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영의
현존과 함께 하나가 되어 일한다. 이러한 이원적(二元的)

영 연락이 세계들을 두루 떠돌면서, 진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깨우치기 위하여, 상승하는 종족들의 창조체들의 혼에 영감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진화하는 행성들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성한 운명의 파라다이스 목표를 그들이 영원토록 향하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4:5.5 (379.5) 진리의 영이 모든 육신에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이 영은 기능과 힘의 면에서 증여 아들의 임무 전체와 본질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사람의 개인적 수용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제한된다. 성령은 인간 태도로부터 부분적으로 독립되며 사람의 의지의 결정과 협동에 의해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명활동은 신성한 인도에 더욱 충분히 복종하는 그 필사자들의 내적(內的) 삶의 성화(聖化)와 영성화에 점점 더 효력을 나타내게 된다.

34:5.6 (379.6) 개별존재들로서 너희는 창조자 아버지-아들 혹은 창조 어머니 영의 영 실존개체나 또는 분리된 부분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는다; 신비 감시자들이 하는 것과는 달리, 이들 사명활동은 개별존재의 마음의

생각하는 중심부와 접촉하지도 않으며 또한 내주하지도 않는다. 생각 조절자들은 우주 아버지의 전(前)개인적 실체의 명확한 개별존재화이며, 그 마음의 바로 한 부분으로서 필사자 마음에 실재로 내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의 병합된 영들과 함께 완전한 조화 속에서 언제까지나 일한다.

34:5.7 (380.1) 무한한 영의 우주 딸에서의 성령, 영원한 아들의 우주 아들에서의 진리의 영, 그리고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조절자-영이 진화 필사자 안에 또는 그와 함께 현존하는 것은, 영적 자질과 사명활동에서의 균형을 의미하며, 그리고 그러한 필사자가 하느님과의 아들관계에 대한 신앙-사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본질성을 갖추게한다.

제 6 장. 사람 안에 있는 영

34:6.1 (380.2) 거주되는 행성의 발전하는 진화와 그 거주자들의 더 깊은 영성화로, 부가적인 영적 영향들이 그러한 성숙된 개인성들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마음 통제와 영 인식에서 필사자들이 진보하게 되면, 이러한 복합적 영 사명활동들은 기능적으로 점점 더 조화-협동을 이룩하게

된다; 그것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포괄적 사명활동과 점점 더 혼합된다.

34:6.2 (380.3) 비록 신성(神性)이 현시활동 안에서 복수(複數)라고 하더라도, 인간 체험 안에서 신(神)은 단수이고 언제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 체험에 있어서 영적 사명활동도 복수가 아니다. 기원의 복수에 상관없이, 모든 영 영향들은 기능적으로 하나이다. 그것들은 정말로 하나인데, 대우주의 창조체들 안에 그리고 그들에 대해 칠중 하느님의 영 사명활동이다; 그리고 창조체들이 영의 이 통합하는 사명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접수성에서 성장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 안에서, 최극위 하느님의 사명활동이 된다.

34:6.3 (380.4) 영원한 영광의 고지(高地)로부터 신성한 영이, 일련의 긴 과정들을 따라, 너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너희가 있는 곳에서 만나려고 내려왔으며 그 다음에는, 신앙의 협력 속에서 필사자 기원의 혼을 사랑스럽게 포옹하고 검양의 그 과정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되돌아가기 위하여, 자비와 사명활동의 이 임무로 신성한 영이 기원적으로 출발하였던 바로 그 기쁨의 정상으로

진화적인 혼이 안전하게 드높여질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34:6.4 (380.5) 영적 기세들은 그들 자신의 기원적 차원들을 반드시 찾고 달성한다. 영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간다, 내주 하는 조절자의 인도와 가르침을 지지하였던 시간과 공간의 자녀들, 정말로 “영으로 태어난” 하느님의 신앙 자녀들, 모두를 함께 데리고 간다.

34:6.5 (380.6) 신성한 영은 사람 자손들에 대한 계속적인 사명활동과 격려의 근원이다. 너희의 힘과 성취는 “영의 새롭게 함을 통한 그의 자비”에 달려 있다. 영적인 생명은 물리적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소모된다. 영적인 노력은 상대적인 영적 고갈을 가져온다. 전체 상승 체험은 영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다. “생기를 주는 것은 영이다.” “영이 생명을 준다.”

34:6.6 (380.7) 아무리 고귀한 종교적 교리라도, 죽은 이론은 인간 성격을 변환시키거나 필사자 습성을 통제할 힘이 없다. 오늘날의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너희 옛 선생들이

외쳤던 “말에 있지 않고 오직 힘과 성령 안에 있다.”는 진리이다: 신성한 영이 진리의 형체들에게 숨을 불어넣고 정의(正義)의 법칙들을 소생시킬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이론적인 진리의 씨는 죽어있고, 가장 높은 도덕적 개념은 아무런 효력없이 존재한다.

34:6.7 (381.1) 내주 하는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그들은 영으로 태어났다. “너희는 하느님의 성전이며, 하느님의 영이 너희들 안에 거주한다.” 이 영이 너희들에게 부여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신성한 영이 인간 체험의 모든 국면을 지배하고 통제해야만 한다.

34:6.8 (381.2) 필사자 불만의 소모적인 갈등을 막는 것과 영성화 되지 못한 인간 마음의 형언할 수 없는 배고픔을 막는 것은 생명의 물인 신성한 영의 현존이다. 영-동기화 된 존재들은 “목마를 때가 결코 없으니, 이는 이 영적인 물이 그들 안에서 영속하는 생명 속으로 만족함이 솟아오르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것처럼 신성하게 물을 머금게 된 혼들은 삶의 기쁨과 세상적 실존의 만족감에서 볼 때 한결같이 물질적 환경과는 전혀 독립되어 있다. 그들은 영적으로 빛을 받았고 그리고 새롭게 되었으며,

도덕적으로 강한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자질로서 부여받게 된다.

34:6.9 (381.3) 모든 각각의 필사자에는 이원적(二元的) 본성이 있다: 동물적 경향의 유전과 영 자질의 높은 충동이다. 너희가 유란시아에 사는 짧은 삶 동안, 서로 반대적이고 다양한 이 두 충동들은 충만하게 화해되기가 매우 힘들며; 그것들은 거의 조화를 이룰 수 없고 통합될 수 없다; 그러나 병합된 영은 너희의 삶에 두루 영의 인도에 육신이 점점 더 복종하도록 너희를 돕는 사명활동을 계속한다. 너희가 물질적인 삶을 전부 살아야 하지만, 너희가 육체와 그에 필요한 것들을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이상에서 너희는 점점 더 동물적 본성을 영의 지배에 종속시키는 힘을 갖추고 있다. 너희 안에는 영적 기세들의 계획, 신성한 힘들의 어떤 동맹이 정말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의 배타적 목적은 물질적 속박과 유한이라는 장애로부터 너희가 최종적 해방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34:6.10 (381.4) 이러한 모든 봉사사명의 목적은 “너희가 내적(內的) 사람 안에 있는 그의 영을 통하여 힘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신앙과 봉사의 완전의 최종 달성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을 나타낼 뿐이며, 그 속에서 너희가 "하느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체험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 모두는 하느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34:6.11 (381.5) 영은 결코 몰아가지 않고, 오직 인도할 뿐이다. 만약에 너희가 기꺼이 배우고자 한다면, 만약 너희가 영 차원들을 달성하고 신성한 고지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만약에 너희가 영원한 목표에 당도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그러면 신성한 영이 아들관계와 영적 진보의 길을 따라서 너희를 부드럽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지나가는 모든 과정은 기꺼이 여김, 지능적이고 유쾌한 협동의 과정이어야 한다. 영의 통치는 강압에 의해 결코 오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요에 의해 양보되지도 않는다.

34:6.12 (381.6) 그리고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이 자유롭게 그리고 지능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인간 마음 안에는 신성한 접촉과 영 교제에 대한 확신이 점차적으로 개발된다; 곧 "영은 너희 영(조절자)과 함께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너희 자신의 생각 조절자가
하느님에 대한 너희의 친족관계를 너희에게 이미
이야기하였으니 그래서 기록이 영이 너희의 영에게가
아니라 “너희의 영과 함께” 증언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34:6.13 (381.7) 인간 삶에서 영이 다스림을 의식하는 것은 그와
같이 영으로-인도된 필사자의 삶 반응에서 영의 특징들의
증가되는 출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제시된다. “왜냐하면
영의 열매들은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 선(善),
신앙, 온유함, 그리고 절제이기 때문이다.” 영으로-
인도되고 신성하게 조명을 받는 그러한 필사자들은,
그들이 아직도 고통의 초라한 길을 걷고, 인간 충성심
안에서 그들의 세상 임무에서의 과업들을 수행하는
중이지만 한편, 이미 영원한 생명의 빛들을 식별하기
시작한 것이며, 그것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의
해안에서도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다; 영감을 주고 위안을
주는 진리, “하느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의 정의(正義)와 평화와 기쁨에 있다”는 것의
실체를 그들은 이미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영이-
탄생시킨 혼들은 모든 시험에 두루 그리고 온갖 고단함이

가득한 현존에서도 모든 두려움을 초월하는 바로 그러한 희망에 의해서 견디어 지속될 수 있으니 이는 신성한 영의 현존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모든 가슴 속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제 7 장. 영과 육신

^{34:7.1 (382.1)} 육신, 곧 동물-기원 종족들로부터 발생한 선천적인 본성은 신성한 영의 열매들을 자연적으로 맺지는 않는다. 하느님의 물질아들들의 본성이 추가됨으로써 필사자 본성이 향상되었을 때, 아담의 증여에 의해 유란시아 종족들이 평가에서 증진되었듯이, 영의 성격 열매들의 훌륭한 추수가 이루어지도록 진리의 영이 내주 하는 조절자와 협동하도록 길이 더 잘 준비된다. 만약에 너희가 이 영을 거부하지 않으면, 비록 영원이 그 임무의 완성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안내할 것이다”.

^{34:7.2 (382.2)}영적 진보의 정상적인 세계들에 거주하는 진화적 필사자들은 지금-현재의 유란시아 종족들의 특징인 영과 육체 사이의 심각한 모순들을 체험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행성에서라도, 아담의-이전(以前)의 사람은

순전히 동물적인 차원의 실존으로부터 점점 더 지적인 의미들과 보다 높은 영적 가치들의 연속적인 차원들을 통과하여 상승하는 적극적인 노력들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34:7.3 (382.3) 정상적인 세계의 필사자들은 그들의 육체와 영적 본성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을 체험하지 않는다. 그들은 동물적 차원의 실존으로부터 영적 삶의 보다 높은 단계로 올라갈 필요성에 직면해 있지만, 이러한 상승은 다른 물질적 그리고 영적 본성을 갖는 이 영역에 있는 유란시아 필사자들의 격렬한 모순들과 비교할 때 교육적인 훈련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34:7.4 (382.4) 유란시아 사람들은 행성의 진보적인 영적 달성에 대한 이 임무에 있어서 도움을 이중적으로 박탈당한 결과로 고생하고 있다. 칼리가스티아 변란은 세계적인 혼돈을 야기 시켰고 질서가 잡힌 사회가 제공할 수 있었던 도덕적 도움을 그 다음의 모든 세대들로부터 박탈하였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재난은 영적인 열망에 더욱 조화할 수도 있었던 육체적 본성을 갖는 우월한 유형의 종족들이 나오지 못하게 한 아담의-불이행이었다.

34:7.5 (382.5)

유란시아 필사자들은 영과 육신 사이의 그러한 현저한 갈등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그들의 먼 조상들이 에덴의 증여에 의해 보다 더 아담을 닮는 일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신성한 계획은 유란시아의 필사 종족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영에 반응을 하는 육체적 본성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34:7.6 (382.6)

사람의 본성과 그의 환경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재난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의 필사자들은 영 왕국에 그들이 들어간다면 육체와 영 사이의 이러한 분명한 투쟁을 덜 체험할 것이며, 그 안에서 하느님의 신앙적 자녀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깨우쳐진 그리고 자유를 주는 봉사 속에서, 육신의 노예-속박으로부터의 상대적인 해방을 맛본다. 예수는 인간 존재들이 칼리가스티아 반역의 무서운 결과들로부터 매우 현저하게 피할 수 있는, 그리고 아담의-불이행으로 생기는 부족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상하는 필사자 삶의 새로운 길을 인류에게 보여주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생의 영은 우리들로 하여금 동물적인 삶의 법칙으로부터 그리고 악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였다.” “이것이 육신을 극복하는 그 승리,
너희의 신앙이다.”

34:7.7 (383.1) 영으로 태어난, 하느님을 아는 남자와 여자들은
가장 정상적인 세계들, 죄로 물든 적이 없고 반역의 영향을
받지 않은 행성들에 거주하는 자들 보다 그들의 필사자
본성들과의 갈등을 더 체험하지는 않는다. 믿음의
아들들은 억제되지 않거나 정상적이 아닌 육체적
욕망들에 의해 산출되는 갈등들을 훨씬 뛰어넘는 지적인
차원들에서 활동하고 영적인 단계에서 생활한다. 동물적
존재들의 정상적인 충동들과 자연적인 욕망들 그리고
육체적 본성의 자극들은, 무식하거나 잘못 가르침을
받았거나 또는 불행하게도 지나치게-양심적인 개인들의
마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심지어 가장 높은 영적 달성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34:7.8 (383.2) 영존하는 일생의 길을 이제 출발하였고,
임무배정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전진하라는 너희의
계층들을 수여받았으니, 인간의 망각의 위험과 필사자의
변덕스러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할 것 같은 의심이나
당혹하게 하는 혼란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며, 너희의

지위와 처지에 비틀거리지도 말고 의문도 갖지 말라, 이는 어두운 모든 시간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투쟁의 모든 교차로에서, 진리의 영이 항상 “이것이 그 길이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34:7.9 (383.3) [유란시아에서의 봉사에 일시적으로 배정된 막강한 메신저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35 편 하느님의 지역우주 아들

35:0.1 (384.1) 앞에서 소개된 하느님의 아들들은 파라다이스에서 기원되었다. 그들은 우주적 영역들에 대한 신성한 통치자들의 자녀들이다. 아들관계를 갖는 최초 파라다이스 계층에는, 창조자 아들들, 네바돈에는 우주의 아버지며 주권자인 오직 하나의 미가엘만이 있다. 파라다이스 아들관계의 두 번째 계층에는 아보날 또는 치안법관 아들들이 있는데, 네바돈에는 배정된 숫자—1,062명—가 모두 있다. 그리고 이 “비교적 작은 그리스도들”은 창조자 및 주(主) 아들이 유란시아에서 그러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행성증여에 있어서 효력이 있고 만능이다.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세 번째 계층은 지역우주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내가

추정하기로는 네바돈에 기록된 9,642명의 창조체-삼위일체화 보좌관들을 제외하고 15,000명 내지 20,000명의 삼위일체 교사(敎師) 아들들이 있다. 이 파라다이스 데이날들은 치안법관들도 아니고 관리행정자들도 아니며; 초(超)선생들이다.

35:0.2 (384.2)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아들들의 유형들은 지역우주에서 기원된 존재들이다; 그들은 상호 보완적인 우주 어머니 영과의 다양한 관계적-연합 속에서 이루어진,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의 자녀들이다. 다음의 지역우주 아들관계 계층들이 이 글에서 언급될 것이다:

35:0.3 (384.3) 1. 멜기세덱 아들.

35:0.4 (384.4) 2. 보론다덱 아들.

35:0.5 (384.5) 3. 라노난덱 아들.

35:0.6 (384.6) 4. 생명운반자 아들.

35:0.7 (384.7) 삼원적 파라다이스 신(神)은 아들관계 세 계층, 미가엘, 아보날 그리고 데이날의 창조를 위해 기능 한다: 지역우주에서의 이중적 신(神)인 아들과 영 역시 세 가지 높은 계층, 멜기세덱, 보론다덱 그리고 라노난덱의

창조에서 기능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삼중 표현을 성취하고 나서, 그들은 다재다능한 계층의 생명운반자들을 산출하는 일에 칠중 하느님의 다음 차원과 협동한다. 이 존재들은 하강(下降)하는 하느님의 아들로써 분류되지만, 그들은 독특하고도 기원적 형태의 우주 생명이다. 그들에 대한 설명이 다음 글 전체를 차지할 것이다.

제 1 장. 아버지 멜기세덱

^{35:1.1 (384.4)} 새벽별 그리고 다른 행정-관리적 개인성들과 같은 개인적 도움의 존재들이 실존하게 된 이후에, 주어진 우주의 신성한 목적과 창조 계획들에 따라서,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 곧 지역우주 무한한 영의 딸 사이의 창조적 연합의 새로운 형태가 발생된다. 이 창조적 동반자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성 자손은 기원적 멜기세덱—아버지 멜기세덱—이며, 그는 이어서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과 협력하여 그 이름을 가진 집단 전체를 실존하게 만드는 독특한 존재이다.

^{35:1.2 (385.1)} 네바돈 우주에서 아버지 멜기세덱은 빛나는 새벽별의 첫번째 집행자 연관-동료로 활동한다. 가브리엘은 우주 정책들에 더 많이 관여하고, 멜기세덱은

실천적인 과정에 더 많이 관여한다. 가브리엘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네바돈 법정과 협의회를 주재하고, 멜기세덱은 특별하고 예외적이며 긴급한 위원회와 자문 기관들을 주재한다. 가브리엘과 아버지 멜기세덱은 구원자별에서 동시에 같이 떠나는 경우가 전혀 없는데, 왜냐하면 가브리엘이 없을 때에는 아버지 멜기세덱이 네바돈의 집행자 우두머리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35:1.3 (385.2) 우리 우주의 멜기세덱들은 아버지 멜기세덱과 연락하여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에 의해 표준시간으로 1,000년의 기간 안에 모두 창조되었다. 그들 자신의 구성원들의 하나가 조화-협동 창조자로 기능하는 아들관계의 계층으로서, 멜기세덱들은 부분적으로 자아-기원으로 구성되며 그에 따라서 자치-관리의 드높은 형태의 실현을 위한 후보자들이다. 기원적 멜기세덱이 특정한 고유의 공동-부모적 특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들은 표준시간으로 7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그들 자신의 행정-관리적 우두머리로 주기적으로 선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아-규율하는 계층으로 기능한다. 이 아버지 멜기세덱은 자기 계층의 특정한 개별존재들을, 유란시아에서는 지금까지 계시된 적이 없는, 거주민이 사는 행성 형태인

아(亞)중간 세계에서 특별한 생명운반자들로 기능하도록 임명한다.

35:1.4 (385.3) 멜기세덱들은 초우주의 법정들에 계류된 문제들에 증인으로 불리어지는 경우와, 때때로 그들이 그러하듯이, 같은 초우주에서 한 우주를 다른 우주에게 대변하는 특별한 대사(大使)로 임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우주 밖에서 광범위하게 기능하지 않는다. 각 우주의 기원적 또는 최초-탄생 멜기세덱은 이웃 우주로 또는 그의 계층의 관심사와 임무를 수행하는 임무들로서 파라다이스로의 여행에 늘 해방되어 있다.

제 2 장. 멜기세덱 아들

35:2.1 (385.4) 멜기세덱들은 육신화의 필요가 없이, 필사자의 향상의 사명활동에 직접적으로 기능하고 진화적 종족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낮은 창조 생명에 충분히 접근하기 위한 신성한 아들들의 첫 번째 계층이다. 이들 아들들은 본래 위대한 개인성 하강의 중간지점에 있으며, 그 기원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신성(神性)과 의지 자질의 가장 낮은 창조 생명의 중간쯤에 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높고 신성한 살아있는 실존 차원들과, 더 낮은 심지어 물질적인, 진화

세계들의 생명 형태들 차원 사이의, 자연적인 중간 매개자들이 된다. 세라핌천사 계층들, 천사들은 멜기세덱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한다; 사실, 모든 형태의 지능 생명들은 이 아들들에서 이해심이 많은 친구들과 동정심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현명한 조언자들을 발견한다.

35:2.2 (385.5) 멜기세덱들은 자치-관리하는 계층이다. 독특한 이 집단과 함께 우리는 지역우주 존재들의 자아-결정에 대한 처음 시도를 발견하게 되며, 참된 자치-정부의 가장 높은 형태를 보게 된다. 이 아들들은 자신들의 집단과 본부-행성 관리-행정을 위한 자체 장치뿐만 아니라 6개의 연관 구체들 및 그들의 보조 세계들에 대한 장치도 역시 조직한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결코 남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기록하여야만 한다. 오르본톤 초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이 멜기세덱 아들들이 한 번도 그들의 신뢰를 배반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자치를 열망하는 모든 우주 집단의 희망이다; 네바돈의 모든 구체들에게 자치-정부에 대한 원형틀이며 교사들이다. 위로부터 우월한 존재들로부터 아래로부터 종속적 존재들까지, 지능 존재들의 모든 계층들은 멜기세덱들의 정부에 대해 전심으로 찬양한다.

35:2.3 (386.1) 아들관계의 멜기세덱 계층은 거대한 가족에서 가장 연장자 아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책임을 진다. 그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규칙적이고 어느 정도 정해진 일이지만, 그 대부분은 자발적이고 모두가 자아-부과해서 하는 것이다. 때때로 구원자별에 소집되는 특별한 집회들 대부분은 멜기세덱들의 동의로 소집된다. 그들 자신의 발의(發議)로, 이 아들들은 그들이 출생한 우주를 순시한다. 그들은 우주 지능에 헌신하는 자율적 조직을 유지하며, 영역의 일상적인 관리-행정에 관계하는 정규 대리자들을 통하여 우주 본부에 이르는 모든 정보에 상관없이 창조자 아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그들은 선천적으로 공평한 관찰자들이다; 그들은 지능 존재들의 모든 계층들에게서 충만한 신뢰를 받고 있다.

35:2.4 (386.2) 멜기세덱들은 영역들의 이동하는 자문 재심 법원으로 기능 한다; 이 우주 아들들은 자문 위원회로 봉사하기 위하여, 조서를 꾸미기 위하여,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리고 조언자로 활동하기 위하여 작은 집단을 이루어 세계들로 가며, 그렇게 해서 진화적인 권역의 관련사들에 있어서 때때로 발생하는 심각한

차이들을 해결하고 주요 문제점들을 안정시키는 일을 돕는다.

35:2.5 (386.3) 이들 우주의 만아들들은 창조자 아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서 빛나는 새벽별의 우두머리 도움자들이다. 멜기세덱이 가브리엘의 이름으로 먼 세계에 갈 때, 그는 특별한 그 임무의 목적들을 위하여 보내는 이의 이름으로 대리할 수 있으며 그 사건 안에서 빛나는 새벽별의 충만한 권한을 가지고, 배정된 행성에 나타날 것이다. 특별히 더 높은 아들이 영역의 창조체들의 모습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 구체들에서는 이것이 사실이다.

35:2.6 (386.4) 창조자 아들이 진화 세계에 증여의 생애를 시작할 때, 그는 혼자서 간다; 그러나 그의 파라다이스 형제들 중의 하나인 아보날 아들이 증여를 시작할 때에는, 증여 임무의 성취에 매우 효과적으로 기여할 12명의 멜기세덱 후원자들과 동행한다. 또한 그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을 향한 치안법관 임무들에 있어서 파라다이스 아보날들을 도우며, 이러한 임무들에서 아보날 아들이

어떤 식으로 필사자의 눈에 현시된다면 멜기세덱들 역시 필사자들의 눈에 보인다.

35:2.7 (386.5) 그들이 사명활동하지 않아도 될만큼 그러한 영적 필요성이 없는 행성의 위상은 하나도 없다. 그들은 창조자 아들과 그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충만한 인식에 이르도록 진보된 생명의 전체 세계들을 매우 자주 인도하는 선생들이다.

35:2.8 (386.6) 멜기세덱들은 지혜에 있어서 거의 완전하지만, 판단에 있어서는 전혀 실패가 없지 않다. 행성 임무들에 홀로 파견되었을 때, 그들은 때로 사소한 문제들에서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그것은 그들의 감독자들이 나중에 인정하지 않는 어떤 일들을 하려고 그들이 선택한 것이다. 그러한 판단 실수는 그가 구원자별에 갈 때까지 일시적으로 멜기세덱의 자격을 잃게 하며, 창조자 아들을 알현하면서, 그의 동료들과 불일치하도록 만든 부조화를 그에게서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교육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면 교정을 위한 휴식이 있는 다음, 세 번째 날이 지나간 후 봉사에 복귀된다. 그러나 멜기세덱 기능에서

이러한 사소한 부적응들은 네바돈에서 매우 드물게 발생했다.

35:2.9 (387.1) 이들 아들들은 숫자가 증가하는 계층이 아니며; 각 지역우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숫자는 고정되어 있다. 네바돈에 있는 그들의 본부에 기록된 멜기세덱들의 숫자는 1,000만 명보다 많다.

제 3 장. 멜기세덱 세계

35:3.1 (387.2) 멜기세덱들은 우주 본부인 구원자별 근처에 자기 고유의 세계를 차지하고 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이 구체는, 70개의 1차 구체들로, 각각은 특별한 활동에 배정된 여섯 개의 보조 구체들로 둘러싸여, 이루어진 구원자별 순환회로의 선도(先導)세계이다. 기묘한 이 구체들—1차 70개와 보조 420개—은 때로 멜기세덱 대학이라고 불린다. 네바돈의 모든 별자리들로부터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구원자별에서 거주 지위를 취득하면서 모든 490개 세계들에서의 훈련을 통과하게 된다. 그러나 상승자들의 교육은 고안건축 구체의 구원자별 군(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오직 한 위상에 해당된다.

35:3.2 (387.3) 구원자별 순환회로의 490개 구체들은 10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은 7개의 1차 구체와 42개의 보조 구체들로 구성된다. 이 집단들 각각은 우주 생명의 주요 계층들 중 어느 하나의 전반적인 감독을 받는다. 순환회로를 도는 행성 행렬에서 선도(先導)세계와 그 다음의 여섯 개의 1차 구체들을 포함하는 첫 번째 집단은 멜기세덱들의 감독을 받는다. 이 멜기세덱 세계들은 다음과 같다:

35:3.3 (387.4) 1. 선도(先導)세계—멜기세덱 아들의 본부 세계.

35:3.4 (387.5) 2. 물리적-생명 학교들과 살아있는 에너지 실험실이 있는 세계.

35:3.5 (387.6) 3. 모론시아 생명의 세계.

35:3.6 (387.7) 4. 최초 영 생명의 구체.

35:3.7 (387.8) 5. 중간-영 생명의 세계.

35:3.8 (387.9) 6. 진보하는 영 생명의 구체.

35:3.9 (387.10) 7. 조화-협동의 그리고 최극의 자아-실현의 권역.

35:3.10 (387.11) 이 멜기세덱 구체들의 여섯 보조적 세계들은
연관된 1차 구체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들에 헌신한다.

35:3.11 (387.12) 멜기세덱 구체인 선도(先導)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교육하고 영성화 시키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존재들의 일반적인 회합 장소이다.
상승자에게 이 세계는 네바돈 전체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이다. 그들의 별자리 훈련을 마친 모든 진화하는
필사자들은 멜기세덱의 세계로 가게 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구원자별 교육 체계의 단련과 영 진보의
체제에 가입된다. 그리고 너희가 파라다이스 목적지에
도착된 후에도 너희는 독특한 이 세계에서 삶의 첫 날에
대한 너희의 반응을 잊지 못할 것이다.

35:3.12 (387.13)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전문화된 교육의
순환회로를 도는 여섯 행성들에서의 그들의 훈련을
따라가는 동안 멜기세덱 세계에서 거처를 잡는다. 그리고
동일한 이 방법은 70개의 문화세계, 구원자별 순환회로의
1차 구체들에서 그들이 머무는 전체 기간에 두루
적용된다.

35:3.13 (387.14) 멜기세덱 구체의 여섯 보조 세계들에 거주하는 수많은 존재들의 시간을 많은 다양한 활동들로 채워지겠지만, 상승하는 필사자들에 관해서, 이 위성들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연구단계에 헌신 한다:

35:3.14 (388.1) 1. 1번 구체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최초 행성 생활을 복습하는 일에 사용된다. 이 작업은 필사자 기원의 주어진 세계로부터 온 자들로 구성된 학급들에서 수행된다. 유란시아에서 온 자들은 그러한 체험적 복습을 같이 하게 된다.

35:3.15 (388.2) 2. 2번 구체의 특별한 작업은 지역 체계 본부의 첫째 위성을 도는 맨션세계들을 통과해 온 체험에 대한 비슷한 복습으로 구성된다.

35:3.16 (388.3) 3. 이 구체의 복습은 지역체계의 수도(首都)에 머물렀던 것과 관계되며 체계 본부 군(群)의 고안건축 세계들의 나머지에 해당하는 활동들을 포옹한다.

35:3.17 (388.4) 4. 4번째 구체는 별자리의 70개 보조 세계들과 그들과 연관된 구체들의 체험들을 복습하는 일로 이루어진다.

35:3.18 (388.5) 5. 5번째 구체에서는 별자리 본부 세계에 머물던 상승자들에 대한 복습이 수행되어진다.

35:3.19 (388.6) 6. 6번 구체에서의 시간은 이 다섯 신(新)시대들을 상관관계 시키려고 시도하는 일에 사용되며 그리하여 우주 훈련의 멜기세덱 초등학교에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체험의 조화-협동이 이루어진다.

35:3.20 (388.7) 우주 관리-행정과 영적 지혜의 학교들은 멜기세덱 고향 세계에 위치해 있는데, 그곳에서는 에너지, 물질, 조직, 통신, 기록, 윤리, 그리고 상대적인 창조체 체험 등과 같은 연구의 단일 계통에 헌신하는 학교들도 발견된다.

35:3.21 (388.8) 영적 수여자질의 멜기세덱 대학에서는 하느님의 아들들의 모든 계층들—파라다이스 계층들조차도—은, 우주의 먼 세계들까지에도 영적인 해방과 신성한 아들관계를 외치면서 운명의 전도자들로서 나아가는 무리들을 훈련하는 일에 멜기세덱 그리고 세라핌천사 선생들과 협동한다. 멜기세덱 대학의 이 특수학교는 전문적인 우주 연구기관이다; 학생 방문자들은 다른 영역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5:3.22 (388.9) 우주 관리-행정에 있어서 최고 과정의 훈련은 멜기세덱들에 의해 그들의 본거지 세계에서 주어진다. 이 최고 윤리 대학은 기원적인 아버지 멜기세덱에 의해 운영된다. 다양한 우주들이 보내는 교환 학생들이 이 학교들로 온다. 네바돈의 어린 우주는 영적 성취와 높은 윤리적 발전의 면에서 볼 때 우주들의 크기에서 낮은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리-행정적 문제들은 다른 가까운 창조들을 위하여 전 우주를 커다란 상담소로 바꾸었음으로, 멜기세덱 대학들이 다른 영역들로부터의 학생 방문자들과 관찰자들이 모여든다. 지역적 등록자들의 거대한 집단들 이외에도, 멜기세덱 학교들에 참여하는 외래(外來) 학생들은 100,000명을 항상 넘는데, 왜냐하면 네바돈에 있는 멜기세덱들의 계층이 스프랜돈 전체에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제 4 장. 멜기세덱들의 특별 업무

35:4.1 (388.10) 멜기세덱 활동들 중에서 고도로 특수화된 분야는 상승하는 필사자의 진보적인 모론시아 생애의 감독과 관계가 있다. 이 훈련 대부분은 인내심이 있고 현명한 세라핌천사 사명활동자들에 의해 수행되며, 우주 달성의 비교적 높은 차원을 달성한 필사자들의 보조를 받지만,

이러한 모든 교육적 업무는 삼위일체 교사 아들과
관계적-연합으로 멜기세덱들의 전반적인 감독을 받는다.

35:4.2 (389.1) 멜기세덱 계층들이 광대한 교육 체계와
지역우주의 체험적 훈련 체제에 주로 헌신하는 한편,
그들은 또한 색다른 환경들에서 그리고 독특한 업무에서
기능하기도 한다. 결국에는 약 1,000만 개의 거주세계들을
포함하는 진화하는 우주에서, 평범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으며, 그러한 응급 상황에서
멜기세덱들이 기능한다. 너희의 별자리 본부인
에덴시아에서, 그들은 비상사태 아들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행성에서, 체계에서, 별자리에서, 또는 우주에서,
모든 위급한 상황들—물리적, 지적, 또는 영적—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멜기세덱 아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35:4.3 (389.2) 창조자 아들이 가진 계획의 어떤 면이 실패할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멜기세덱이 즉시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러나 사타니아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죄 많은 반란의

현존 안에서, 기능하려고 그들이 소환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35:4.4 (389.3) 의지 창조체들이 거주하는 모든 세계들에서 어떤 본성이든지 모든 응급 상황에서 제일 먼저 멜기세덱들이 활동한다. 그들은 때로 불안정한 행성들에서 일시적인 보호관리자로 활동하는데, 불이행 행성 정부의 접수자로 봉사한다. 행성위기가 있을 때 이 멜기세덱 아들들은 독특한 여러 능력들을 가지고 일한다. 그러한 아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필사 존재들에게 보이도록 하는 일은 쉽게 가능하며, 어떤 때에는 이 계층의 하나가 필사자의 육신을 닮은 모습으로 육신화 되기도 하였다. 네바돈에서는 일곱 번에 걸쳐서 멜기세덱이 진화 세계에 필사 육신과 비슷한 모양으로 활동하였으며, 수많은 경우들에서 이 아들들이 우주 창조체들의 다른 계층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었다. 그들은 모든 계층들의 우주 지능체에 그리고 모든 세계들과 세계들의 체계들에게 융통성이 있는 그리고 자발적인 비상조치 사명활동자들인 것이 사실이다.

35:4.5 (389.4)

아브라함의 시대에 유란시아에서 살았던 멜기세덱은 그 부근에서 살렘의 영주로 알려졌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살렘이라 불리는 장소에 거주하는 진리 탐구자들의 작은 거류민단을 통솔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발적으로 필사자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화 되었으며 점증하는 영적 무지(無智) 시대 동안 생명의 빛이 꺼지게 될 것을 염려한 행성의 멜기세덱 접수자들의 동의하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시대의 진리를 육성하였으며 아브라함과 그의 연관-동료들에게 그것을 안전하게 전수하였다.

제 5 장. 보론다텍 아들

35:5.1 (389.5)

다재다능한 멜기세덱들의 개인적 도움자들과 첫 번째 집단의 창조 이후에, 창조자 아들과 지역우주 창조 영은 두 번째의 위대하고 다양한 계층의 우주 아들관계인 보론다텍들을 계획하고 실존하게 하였다. 그들은 별자리 아버지들로서 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 계층에 속한 아들이 모든 지역우주에서 각각의 별자리 정부 우두머리에 균일하게 있기 때문이다.

35:5.2 (389.6) 보론다덱들의 숫자는 각 지역우주마다 틀리는데, 네바돈에서는 100만 명만이 기록되어 있다. 이 아들들은, 그들의 조화-협동 존재들, 멜기세덱들과 마찬가지로 번식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들이 자신들의 숫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알려진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35:5.3 (389.7) 이 아들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치단체이다,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심지어는 전체적으로, 그들은 멜기세덱과 거의 마찬가지로 대개 자아-결정적이지만, 보론다덱들은 그러한 광범위한 활동에 두루 기능하지 않는다. 그들은 화려한 융통성에 있어서는 그들의 형제 멜기세덱과 같지 않지만, 통치자들로써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행정-관리자들로써는 훨씬 더 믿음직스럽고 효율적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종속들인 라노난덱 체계 주권자들의 전반적인 행정-관리적 동료들은 아니지만, 목적의 안정성에 있어서 그리고 심판의 신성(神性)에 있어서는 우주 아들관계에 해당하는 모든 계층들을 능가한다.

35:5.4 (390.1) 이 아들들의 계층의 결정과 통치가 신성한 아들관계의 영과 항상 일치하고 창조자 아들의 정책들과

조화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들은 실수 때문에 창조자 아들에게 소환되었으며, 상세한 기법적 측면에 있어서 그들의 결정들은 때로 우주의 상급 법정들에게 상소(上訴)되어 반복되었다. 그러나 이 아들들이 실수를 범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그들은 결코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다; 네바돈의 전체 역사상 보론다덱이 우주(宇宙) 정부를 업신여기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35:5.5 (390.2) 지역우주들에서 보론다덱들의 봉사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그들은 다른 우주들에게 대사(大使)들로 활동하며 자신들이 태어난 우주 안에서는 별자리들을 대표하는 영사(領事)들로 활동한다. 지역우주 아들관계의 모든 계층들 중에서 그들은 위험한 우주 상황들에서 행사될 주권 힘의 충분한 대표단을 매우 자주 위탁받는다.

35:5.6 (390.3) 영적인 암흑 속에 분리된 세계들, 반역과 불이행을 통하여 행성 고립을 당하는 구체들에서, 정상적인 지위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찰자 보론다덱이 통상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정한 비상사태의 경우에, 이 지고자 관찰자는 행성에 배정된 모든 천상(天上)의 존재를 다스릴 절대적이고 독단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보론다텍들이 그러한 행성들의 지고자 대리통치자들로서 그러한 권한을 때때로 행사한다는 것이 구원자별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반역에 물들지 않은 거주세계들에서도 역시 사실된다.

35:5.7 (390.4) 12명 또는 그 이상의 보론다텍 아들들의 한 무리가, 행성 또는 체계의 지위를 포함하는 특별한 사건들에 관여하는 재심과 상고 고등법정의 판사석에 앉는다. 그러나 그들의 봉사는 별자리 정부들에게 토착적인 입법 기능들과 훨씬 더 많이 관계된다. 이 모든 봉사들의 결과로, 보론다텍 아들들은 지역우주들의 역사가들이 되었다; 그들은 모든 정치적 갈등들과 거주세계들의 사회적 격변에 개별적으로 익숙하다.

제 6 장. 별자리 아버지

35:6.1 (390.5) 지역우주에 속한 100개 별자리들 각각의 지배자 신분으로 적어도 세 명의 보론다텍들이 배정된다. 이 아들들은 창조자 아들에 의해 선택되며 일 만년—표준시간으로 10,000년, 유란시아 시간으로 약 50,000년—동안의 봉사를 감당하도록 가브리엘에 의해 별자리들의 지고자들로 임명된다. 통치하는 지고자,

별자리 아버지는 상급자와 하급자로 두 명의 연관-동료를 갖는다. 관리-행정이 바뀔 때마다 상급자가 그 정부의 우두머리가 되고, 하급자는 상급자의 임무를 이어받으며, 한편 배정받지 않은 구원자별 세계들에 거주하는 보론다텍들은 하급자 동료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선택될 후보자로서 그들 구성원 중에서 하나를 임명한다. 그리하여 지고자 통치자들 각자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약 150,000년에 해당하는 30,000년 동안 별자리 본부에서 현행 정책에 따라 봉사를 수행한다.

^{35:6.2 (390.6)} 별자리 정부의 실재적인 집권 우두머리들인 100명의 별자리 아버지들은 창조자 아들의 자문회의를 구성한다. 이 협의회는 우주 본부들에서 자주 모임을 가지며 그들이 토의하는 범위와 깊이는 무제한적이지만 주로 별자리들의 복지에 대하여 그리고 전체 지역우주의 관리-행정 통일에 대하여 관여한다.

^{35:6.3 (391.1)} 별자리 아버지가, 그가 자주 그렇게 하듯이, 우주 본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상급 동료는 별자리 관련사들에 대한 임시 지도자가 된다. 선임 연관-동료의 일반적인 기능은 영적인 관련사들을 감독하는 것인 반면,

후임 연관-동료는 별자리의 물리적인 복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아무튼 지고자 셋, 모두가 그 실행의 세부사항
전체에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떤 주요 정책도 별자리 안에서
결코 수행되지 않는다.

35:6.4 (391.2) 영 지능과 통신 경로들의 전체 기능구조는 별자리
지고자들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다. 그들은 구원자별에서
그들의 상급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직접 하급자인,
지역체계들의 주권자들과 완전한 접촉을 이룬다. 그들은
별자리의 상태를 심의하기 위하여 이 체계 주권자들과의
자주 회의를 갖는다.

35:6.5 (391.3) 지고자들은 일단(一團)의 조연자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들은 별자리 본부의 다양한 집단들의 현존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지역적 필요조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때때로 숫자와 인원이 다르다. 긴급 시에 그들은 관리-
행정적인 업무를 돕도록 추가적인 보론다텍의 아들들을
요청하며 또한 신속하게 응답을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들
자신의 별자리인 놀라시아텍은 현재 12명의 보론다텍
아들들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다.

제 7 장. 보론다텍 세계

35:7.1 (391.4) 구원자별을 둘러싸고 있는 70개의 1차 구체들의 순환회로에 있는 일곱 세계들의 제2 집단은 보론다덱 행성들을 구성한다. 이 구체들 각각은, 그것을 돌고 있는 여섯 위성들과 함께, 보론다덱 활동의 특별한 위상에 배치되어 있다. 이 49개 영역들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우주 법률에 관한 교육의 절정기를 맞이한다.

35:7.2 (391.5)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그들이 별자리들의 본부 세계들에서 기능할 때 입법모임을 관측하지만, 이 보론다덱 세계들에서 그들은 상급자 보론다덱들의 감독 아래 지역우주의 실재적인 일반적 법의 제정에 참여한다. 그러한 법령들은 100개 별자리들의 자치 입법 모임들의 다양한 결정들을 조화-협동시키도록 고안되어 있다. 보론다덱 학교들에서 수행될 가르침은 유버사에서 보다는 탁월하다. 이 훈련은 그 여섯 위성들에서의 추가적 작업과 함께 첫 구체로부터 확장되어 나머지 여섯 1차 구체들 그리고 그들과 연관된 위성 집단들을 통해 위쪽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35:7.3 (391.6)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공부와 실천적 작업의 이 세계들에서 수많은 새로운 활동들에 대한 소개를 받게 될

것이다. 꿈에도 생각지 않은 이 새로운 일들에 대한 계시 책임이 우리에게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필사 존재들의 물질적 마음에게 이 일들을 묘사하는 것을 단념하였다. 우리는 이 숭고한 활동들의 의미를 전달할 낱말이 없는 형편이다, 이 49개 세계들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그들의 연구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가질 새로운 이 직종에 대한 예증으로 활용할만한 비슷한 인간의 이행들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상승 체제의 부분이 아닌 다른 많은 활동들은 구원자별 순환회로의 보론다텍 세계들에 중심을 두고 있다.

제 8 장. 라노난텍 아들

35:8.1 (392.1) 보론다텍들을 창조한 후에, 창조자 아들과 우주 어머니 영은 우주 아들관계의 세 번째 계층인 라노난텍들을 실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합하였다. 체계 관리-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임무들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역체계의 통치자인 체계 주권자들로서 그리고 거주세계들의 관리-행정적 우두머리인 행성영주들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35:8.2 (392.2) 아들관계 창조에서 후대의 낮은—신성 차원들을 고려할 때—계층으로서, 이 존재들은 그 다음에 있을 봉사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멜기세덱 세계들의 특별한 훈련과정들을 통과하도록 요구된다. 그들은 멜기세덱 대학에서 최초의 학생들이며 능력과 개인성과 성취도에 따라서 멜기세덱 선생들과 시험관들에 의해 분류되고 보증되었다.

35:8.3 (392.3) 네바돈 우주에는 정확하게 1,200만 명의 라노난덱들이 실존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멜기세덱 구체를 통과하였을 때, 그들은 최종적인 시험에서 세 부류로 나뉘었다.

35:8.4 (392.4) 1. 1차 라노난덱들. 가장 높은 계급으로 709,841명이 있다. 이들은 별자리들의 최고협의회에 체계 주권자들 그리고 보좌관들로서 그리고 우주의 보다 높은 행정 업무에 조언자들로서 지정되었다.

35:8.5 (392.5) 2. 2차 라노난덱들. 멜기세덱으로부터 창발 하는 이 계층에는 10,234,601명이 있다. 그들은 행성영주들로서 그리고 그 계층의 예비자들로서 배정된다.

35:8.6 (392.6) 3. 3차 라노난덱들. 이 집단에는 1,055,558명이 있다. 이 아들들은 하위(下位) 보좌관들, 심부름꾼들, 보호관리자들, 위원들, 관찰자들로써 기능하며, 체계와 그 구성 세계들의 잡다한 임무들을 추진한다.

35:8.7 (392.7) 이 아들들에게는, 진화적인 존재들처럼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진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멜기세덱 훈련을 받게 될 때, 일단 시험을 받고 분류되면, 그들은 배정된 그 계급에서 계속 종사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들은 번식에 참여하지 못하며, 우주 안에 있는 그들의 숫자는 고정되어 있다.

35:8.8 (392.8) 라노난덱 계층의 아들들의 숫자는 구원자별에서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35:8.9 (392.9) 1. 우주 조화-협동이자 및 별자리
조언자100,000

35:8.10 (392.10) 2. 체계 주권자 및 보좌관600,000

35:8.11 (392.11) 3. 행성영주 및 예비자.10,000,000

35:8.12 (392.12) 4. 메신저 무리단400,000

35:8.13 (392.13) 5. 보호관리자들 및 기록자100,000

35:8.14 (392.14) 6. 예비무리단800,000

35:8.15 (392.15) 라노난덱들은 멜기세덱들과 보론다덱들보다 어느 정도 낮은 계층의 아들관계로, 그들은 우주의 하위(下位) 단위들에서 더 크게 봉사를 수행하며, 그것은 그들이 지능 종족들의 비교적 낮은 창조체들에게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빛나갈 수 있고, 우주 정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다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 라노난덱들은, 특별히 1차 계층은, 전체 지역우주 행정-관리자들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다재다능하다. 집행 능력에 있어서 그들을 능가하는 존재는 가브리엘과 그의 계시되지 않은 연관-동료들밖에 없다.

제 9 장. 라노난덱 통치자

35:9.1 (393.1) 라노난덱들은 행성들의 계속적인 통치자들이며 체계들의 순회 주권자들이다. 그러한 한 아들이, 너희의 거주세계들의 지역체계의 본부인 예루셈에서 현재 통치하고 있다.

35:9.2 (393.2) 체계 주권자들은 거주세계들의 각 체계 본부에서 둘 또는 세 명의 위원회들로서 통치한다. 별자리 아버지는 이 라노난덱들 중 한 명을 매 1만 년마다 우두머리로 임명한다. 때로는 세 명의 우두머리 체계에 변화가 없다. 그 문제는 별자리 통치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체계 정부들은 어떤 종류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인원 구성을 갑작스런 변화시키지 않는다.

35:9.3 (393.3) 체계 주권자들 또는 보좌관들이 해임되었을 때, 그들의 자리는 별자리 본부에 위치한 최고회의에 의해 그 계층의 예비자들, 에덴시아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큰 집단으로부터 선택된 자들에 의해 대체된다.

35:9.4 (393.4) 라노난덱 최고회의는 다양한 별자리 본부들에 위치한다. 그러한 기관은 별자리 아버지의 상급(上級) 지고자 연관-동료에 의해 통솔되는 반면, 하급자 동료는 2차 계층의 예비자들을 감독한다.

35:9.5 (393.5) 체계 주권자들은 그 이름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들은 거주세계들의 지역적인 관련사들에서 거의 주권적이다. 그들은 행성영주들, 물질아들들, 그리고 사명활동 영들에 대한 그들의 지도에 있어서 거의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 있다. 주권자의 개인적 장악은 거의 완벽하다. 그 통치자들은 중앙우주로부터의 삼위일체 관찰자들에 의한 감독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지역우주의 집행 부서이며, 입법 명령 집행 보호관리자로서 그리고 사법 판결 적용을 위한 집행자로서, 그들은 미가엘 아들의 뜻에 대한 개인적 불충이 가장 쉽고도 즉각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자기주장을 하려고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우주 관리-행정에 있어서 한 자리에 대변한다.

35:9.6 (393.6) 우리의 지역우주는 700명 이상의 라노난덱 아들이 우주 정부에 대항하여 반역하는 불운을 겪었으며, 그리하여 여러 체계들과 수많은 행성들에서 혼란에 빠졌다. 실패한 이 전체 숫자 중에서 오직 세 명만이 체계 주권자들이었다; 실천적으로 이 아들들 전체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계층들, 행성영주들과 제3 라노난덱들 출신이었다.

35:9.7 (393.7) 고결한-순수성에서 일탈한 이들 아들의 많은 숫자는 창조자관계에 있어서 어떤 결함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들은 신성하게 완전토록 만들어질 수 있었지만, 그들은 시간과 공간 세계들에 거주하는 진화적

창조체들을 더 잘 납득할 수 있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35:9.8 (393.8) 오르본톤 안에 있는 모든 지역우주들 중에서, 우리 우주는, 헨셀론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층의 아들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잃었다. 유버사에서는 우리가 네바돈에서 너무 많은 행정-관리적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들의 라노난텍 아들들 계층이 선택과 계획에 그렇게 커다란 정도의 개인적 해방과 함께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관측을 비판하는 각도에서 하지 않는다. 우리 우주의 창조자는 이것을 할 충분한 권한과 힘을 갖고 있다. 그렇게 자유로운 선택의 아들들이 우주의 초기 시대에 과도한 재난을 일으키는 동안, 사건들이 충분히 선별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을 때, 철저하게 시험을 받은 이 아들들의 더 높은 충성과 보다 충분한 자발적 봉사의 결과는 그 초기 시대의 혼돈과 시련의 보상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사실이 우리들의 고위 통치자들의 주장이다.

35:9.9 (394.1) 체계 본부에서 반역의 사건 안에서는, 대개 새로운 주권자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임명되지만, 개별

행성들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물질적 창조의 구성단위들이며, 창조체 자유의지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의 최종적인 판결에서 하나의 요인이 된다. 후임자 행성영주들은 고립된 세계들, 그곳의 권위의 영주들이 빛나가 버린 행성들을 위해 지명되지만, 그들은 멜기세덱들과 다른 사명활동 개인성들에 의해 채택된 교정 기준에 의해 반란 결과들이 부분적으로 극복되고 제거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세계들에 대한 활동적인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행성영주에 의한 반역은 그의 행성을 즉시 고립시키며; 지역적인 영적 순환회로들은 즉각 분리된다. 오직 증여의 아들만이 영적으로 고립된 그러한 세계에서의 행성간 통신선을 복구시킬 수 있다.

^{35:9,10 (394.2)}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이 아들들을 구할 수 있는 계획이 존재한다, 많은 숫자가 자비로운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불이행하였던 그 위치에서 결코 다시 기능하지는 못한다. 복귀된 후에 그들은 보호관리 임무와 물리적 관리-행정 부서에 배정된다.

제 10 장. 라노난텍 세계

35:10.1 (394.3) 70개 행성들의 구원자별 순환회로 안의 일곱 세계들로 구성된 세 번째 집단은, 그들의 개별적인 42개 위성들과 함께, 행정-관리적 구체들의 라노난덱 군(群)을 구성한다. 이 영역들에서 그 전에 체계 주권자였던 자들의 무리단에 속한 체험을 가진 라노난덱들은 상승하는 순례자들과 세라핌천사 무리의 행정-관리적 선생들로서 직무를 감당한다. 진화적인 필사자들은 체계 수도들에서 일하는 체계 행정-관리자들을 보게 되지만, 여기에서 그들은 10,000개 지역체계들의 행정-관리적 결정들의 실재적인 조화-협동에 관여한다.

35:10.2 (394.4) 지역우주들의 이 행정학교들은 체계 주권자들로서 그리고 별자리 조연자들로서 오랫동안 체험을 가진 라노난덱 아들들의 무리단에 의해 감독을 받는다. 이 집행자 대학들보다 우수한 것은 엔사의 행정학교 밖에 없다.

35:10.3 (394.5)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위한 훈련 구체들 역할을 하는 한편, 라노난덱 세계들은 우주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행정-관리적 작용과 관계되는 광범위한 일들의 중심이다. 파라다이스로 들어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응용지식—그들이 배우고 있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실재적인 훈련—의 실천적인 학교들에서 자신들의 학업을 추구한다. 멜기세덱에 의해 후원되는 우주 교육 체계는 실천적이고 진보적이고 의미심장하며 체험적이다. 그것은 물질적, 지적, 모론시아적, 그리고 영적인 것들의 훈련을 포용한다.

35:10.4 (394.6) 그 계층의 구원된 아들들의 대부분이 행성 관련사들의 보호관리자와 지도자들로써 봉사하는 것은 라노난덱들의 이 행정-관리적 구체들과 관련된다. 그리고 제안된 복권(復權)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반역으로 불이행한 이 행성영주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은 적어도 네바돈 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되기 전까지 일상적인 이 자격들로 계속 봉사하게 될 것이다.

35:10.5 (394.7) 그렇지만, 보다 오래된 체계들 안에 있는 라노난덱 아들들 대부분은 봉사, 관리-행정, 그리고 영적인 성취에서 훌륭한 기록을 남겼다. 그들의 개인적 해방의 오류와 자아-결정의 허구성을 통하여 실수를 범하는 자신들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결하고 성실하며 충성스러운 집단이다.

35:10.6 (394.8) [구원자별의 가브리엘의 권한에 의해 활동하는
천사장들의 우두머리에 의해 후원되었음]

제 36 편 생명운반자

36:0.1 (396.1) 생명은 자발적으로 기원하지 않는다. 생명은
(계시되지 않은) 존재의 고안건축가들에 의해 조성된
계획에 따라 구성되며 직접적인 주입에 의해서 또는
지역우주들의 생명운반자들의 작용의 결과로서 거주민이
사는 행성들 위에 출현한다. 이 생명운반자들은 우주
아들의 다양한 가족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다재다능하다.
그들은 창조체 생명을 설계하고 행성 구체들에게 옮기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그러한 새로운
세계들에게 심은 후에는, 그것의 발달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긴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다.

제 1 장. 생명운반자들의 기원과 본성

36:1.1 (396.2) 생명운반자들이 비록 신성한 아들관계의 가족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주 아들들 중에서 독특하고도
별개의 모습으로, 그들의 창조에 초우주의 통치자들이
참여하는 유일한 지역우주의 지능 생명 집단이다.
생명운반자들은 세 명의 선재하는 개인성들의 자손이다:

창조자 아들, 우주 어머니 영, 그리고 관계된 초우주의 운명을 지배하는 세 명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 중에서 지정된 한 명. 지능적 생명의 소멸을 홀로 명령할 수 있는 이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진화하는 세계들에 물리적인 생명을 정하는 임무를 맡은 생명운반자들의 창조에 참여한다.

36:1.2 (396.3) 네바돈 우주에 우리는 1억 명의 생명운반자들이 창조되었다는 기록을 갖고 있다. 생명을 퍼뜨리는 유능한 이 무리단은 진정한 자아-관리는 아니다. 그들은 가브리엘과 아버지 멜기세덱 그리고 네바돈의 첫 번째 태생이며 기원적인 생명운반자인 남비아로 구성된 생명-결정 3인조에 의해 지도를 받는다. 그러나 그들의 부문적인 관리-행정의 모든 위상들에 있어서는 그들이 자치적이다.

36:1.3 (396.4) 생명운반자들은 크게 세 부문으로 분류 된다: 첫 번째 부문은 상급 생명운반자들이고, 두 번째는 보좌관들이며, 세 번째는 보호관리자들이다. 1차 부문은 생명 현시활동의 다양한 형태의 12개 전문가 집단들로 다시 나뉜다. 이 세 부문들의 분리는 멜기세덱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생명운반자들의 본부 구체에서 그러한 목적들을 위한 처리행위를 행하였다. 멜기세덱들은 그 후로 계속 생명운반자들과 가깝게 연관되어 왔으며 그들이 새로운 행성에 생명을 정하기 위해 나아갈 때마다 항상 그들을 동행하였다.

36:1.4 (396.5) 진화적인 행성이 빛과 생명에 최종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생명운반자들은 세계와 그것의 영화롭게 된 존재들의 한층 더한 관리-행정과 발달을 보조할 수 있는 자문 능력을 갖는 보다 높은 심의기관들로 조직된다. 진화하는 우주의 후기와 안정된 시대에 이 생명운반자들은 많은 새로운 임무들을 맡게 된다.

제 2 장. 생명운반자 세계

36:2.1 (397.1) 멜기세덱들은 구원자별 순환회로에 있는 7개의 1차 구체들의 네 번째 집단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한다. 생명운반자들의 이 세계들은 다음과 같다:

36:2.2 (397.2) 1. 생명운반자 본부.

36:2.3 (397.3) 2. 생명-계획 구체.

36:2.4 (397.4) 3. 생명-보존 구체.

36:2.5 (397.5) 4. 생명 진화의 구체.

36:2.6 (397.6) 5. 마음과 연관된 생명의 구체.

36:2.7 (397.7) 6. 살아있는 존재에서의 마음과 영의 구체.

36:2.8 (397.8) 7. 계시되지 않은 생명의 구체.

36:2.9 (397.9) 이 각각의 첫 번째 세 구체들은 여섯 개의 위성들로 둘러싸여 있고, 우주에서의 모든 생명운반자 활동들의 특별한 위상들이 그 위에 중심을 두고 있다.

36:2.10 (397.10) 1번 세계, 본부 구체는, 그것에 소속된 여섯 개의 위성들과 함께, 일반적 생명, 그것의 알려진 모든 현시활동 위상들의 생명에 대한 연구에 헌신한다. 생명 계획의 대학이 이곳에 위치하고, 그곳에서는 유버사와 하보나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파라다이스로부터 온 선생들과 충고자들이 기능한다. 그리고 나는 보조 마음-영들의 일곱 개 중앙 설치장소가 생명운반자들의 이 세계에 위치하고 있음을 계시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36:2.11 (397.11) 10이라는 숫자—십진법 소수의 체계—는 물리적 우주에는 선천적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생명의 권역은 3과 7 그리고 12에 의해서 또는 이 기본

숫자들의 배수와 조합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세 명의 파라다이스 근원이며 중심들의 체계에 따라, 세 개의 시원적이고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 계획들이 존재하며, 네바돈 우주에는 이 세 개의 생명기본 형태들이 생명의 세 개의 다른 모습의 행성들에 분리되어 있다. 기원적으로는 전송할 수 있는 생명의 12개 별개의 신성한 개념들이 있었다. 이 12라는 숫자는, 그것의 분할과 배수로, 모든 일곱 초우주들의 전체 기본적인 생명 원형틀들 전반에 적용된다. 또한 살아있는 물체의 재생산 배열에 대한 근본적 정렬인, 생명 설계의 일곱 개의 고안건축 유형들이 있다. 오르본톤 생명 원형틀들은 12명의 유전성 운반자들로써 형성된다. 의지 창조체들의 서로 다른 계층들은 12, 24, 48, 96, 192, 384, 그리고 768로 배열된다. 유란시아에는 인간 번식의 성별 세포들 속에 원형틀 통제의 48개 단위들—특색 결정요소들—이 있다.

36:2.12 (397.12) 2번 세계는 생명-설계 구체이다; 여기서는 모든 새로운 생명조직의 양식들이 산출된다. 기원적인 생명 설계들이 창조자 아들에 의해 제공되는 반면, 이 설계들의 실재적인 작업은 생명운반자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에게 맡겨져 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생명 계획들이 일단 세워지고 나면, 그것들은 본부 구체로 전달되며, 그곳에서 그것들은 일단의 자문 멜기세덱들과 협력하는 상급자 생명운반자들의 최고협의회에 의해 끊임없이 세밀하게 조사된다. 만일 그 계획들이 전에 받아들여졌던 공식들과 다르게 되면, 그것들은 반드시 창조자 아들에게 판결을 받고 보증을 받아야 한다. 멜기세덱들의 우두머리는 이러한 심의들에 있어서 자주 창조자 아들을 대신한다.

36:2.13 (397.13) 그러므로 행성의 생명은, 어떤 면들에서 비슷하지만, 각각의 진화 세계에 따라 많은 부문에서 다르다. 세계들의 단일 가계안의 동형(同形) 생명 계통에서조차도, 생명은 어떤 두 행성들에서 정확하게 똑같지 않다; 생명운반자들이 자신들의 보호 아래 맡겨진 생명 공식들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 속에 끊임없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의 행성유형이 있다.

36:2.14 (398.1) 생명 현시활동들의 모체(母體) 원형틀들 그리고 수많은 기본적 기능변형들을 구성하는 1백만 이상의 근본적 또는 조화우주적 화학 공식들이 있다. 생명-계획 구체의 1번 위성은 우주 물리학자들 및 전기 화학자들의

구체이며, 이들은 소위 배아 원형질이라 불리는 생명 전달의 물질적 매체들을 이룩하는 데에 이용되는 에너지의 근본 단위들을 포착하고 조직하며 조종하는 일을 하고 있는 생명운반자들의 기술 보좌관들이다.

36:2.15 (398.2) 행성생명-계획 실험실들은 2번 세계의 두 번째 위성에 위치하고 있다. 이 실험실들에서 생명운반자들과 그들의 모든 연관-동료들은 네바돈의 십진법 소수의 행성들에 이식시키기 위해 계획된 생명들을 수정하고 어떻게든지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멜기세덱과 협동한다. 현재 유란시아에서 진화하고 있는 생명은 바로 이 세계에서 계획되었고 부분적으로 이룩되었는데, 왜냐하면 유란시아가 십진법 소수의 행성, 생명-실험 세계이기 때문이다. 10개의 세계들 중에서 한 개마다 표준 생명 설계에 있어서 다른 (비(非)체험적) 세계들의 경우보다 더 큰 변화가 허용된다.

36:2.16 (398.3) 3번 세계는 생명의 보존에 헌신한다. 이곳에서 생명 보호와 보존의 다양한 형태들이 생명운반자 무리단의 보좌관들과 보호관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개발된다. 모든 새로운 세계들을 위한 생명 계획들은

초기에 일찍 정착할 수 있도록 언제나 생명-보존 위원회가 제반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데, 위원회는 기본적인 생명 원형들의 조종에 매우 숙달된 보호관리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유란시아에는 그러한 보호관리자 위원들이, 생명 물질의 고안건축적 조직을 이루는 각각의 기초적인 원형들, 곧 부모 원형들마다 둘씩, 24명이 있었다. 너희와 같은 그러한 행성에서 생명의 가장 높은 형태는, 24개의 원형들 단위를 지니고 있는 생명-운반 묶음에 의하여 재생산된다.(그리고 지적 생명은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기초 위에서, 자라나오기 때문에, 정신 조직의 4개의 그리고 20개의 기본 계층들이 실존으로 들어오고 있다.)

36:2.17 (398.4) 4번 구체와 그것의 보조 위성들은 일반적으로 창조체 생명의 진화에 대한 연구에 그리고 특히 어떤 한 생명 차원의 진화적 선행자들에게 헌신한다. 진화 세계의 기원적 생명 원형질은 모든 미래의 발전적 변형들과 모든 그에 따르는 진화적 변화들 그리고 변용들을 위한 총만한 잠재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 생명 변형의 그러한 멀리까지 미치는 계획을 위한 준비는 동물 및 식물 생명의 겉으로 보기에 쓸모없는 많은 형태들의 출현을 필요로 할 것이다.

행성진화의 그러한 부산물들은, 예견된 것이든 예견되지 않은 것이든, 오직 사라지기 위하여 활동무대에 등장하지만, 이 긴 과정들 전체 속에서 그리고 그것들에 두루 행성생명 계획과 종족 구성에 대한 기원적 설계자들의 현명하고도 지능적인 공식화의 끈들이 흐르고 있다. 하등 생명 형태를 정복하려고 행하는 고등 창조체들의 위로 향하는 오랜 투쟁에서 시대와 시대를 거치면서, 바깥 쪽으로는 때때로 많은 진화하는 의지 창조체의 평화와 안락과 너무도 반목을 일으키는 엄청난 부조화가 지배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 진화에서의 모든 다양한 부산물들은 생명체의 더욱 높은 지능 형태의 최종적이고도 충분한 기능에 필연적이다.

36:2.18 (398.5) 5번 세계는 마음과 연관된 생명에 전적으로 관여한다. 그것의 위성들 각각은 창조체 생명과 상관된 창조체 마음의 한 위상에 헌신한다. 사람이 이해하는 마음은 무한한 영의 대리자들에 의해 마음의 가르칠 수 없는 또는 기계적인 차원들 위에 첨가되는 일곱 보조 마음-영들의 자질이다. 생명 원형틀들은 이 부차적인 존재들에게 그리고 시간과 공간 우주들에 두루 작동하는 다른 영 사명활동들에게 다양하게 반응한다. 영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적 창조체들의 능력은 연관된 마음 자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그것은 차례로 이 동일한 필사 창조체들의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주도해 왔다.

36:2.19 (399.1) 6번 세계는 그것들이 살아있는 형태들과 유기체들과 연관하는 것과 같이 마음과 영의 상호 관계에 전념한다. 이 세계와 그것에 속한 여섯 보조물들은 창조체 조화-협동의 학교들을 포용하며, 그곳에서는 중앙우주와 초우주 둘 모두로부터 온 선생들이 시간과 공간의 창조체 달성에 대한 가장 높은 차원들을 제시함에 있어서 네바돈 강사들과 함께 협력한다.

36:2.20 (399.2) 생명운반자들의 일곱 번째 구체는 진화적 창조체 생명의 계시되지 않은 권역들에 전념하며, 마치 그것이 최극존재의 확대하는 사실화라는 조화우주적 철학에 관계되는 것과 같다.

제 3 장. 생명 이식(移植)

36:3.1 (399.3) 생명은 우주들에서 자발적으로 출현하지 않는다; 생명운반자들이 불모지 행성들 위에 그것을 전수(傳受)해야만 한다. 생명이 공간의 진화 세계들 위에 출현할 때 그들은 생명의 운반자들이고 그 씨를 뿌리는

자들이며 보호자들이다. 행성 생명의 모든 형태들이 유란시아에 실존하지는 않지만, 유란시아에 알려진 계층과 형태들의 모든 생명들은 이 아들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36:3.2 (399.4) 새로운 세계에 생명을 심도록 위임된 생명운반자들 집단은 대개 100명의 상급(上級) 운반자들, 100명의 보좌관들 그리고 1,000명의 보호관리자들로 구성된다. 생명운반자들이 실재적인 생명 원형질을 새로운 세계에 운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그들이 배정된 행성에 도착한 이후에 생명 수립의 새로운 모험을 하도록 그 전에 허락된 공식에 따라서 생명 원형틀들을 조직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그것이 유란시아의 행성 생명의 기원이었다.

36:3.3 (399.5) 허락된 공식에 따라서, 물질적 원형틀들이 제공되었을 때, 생명운반자들은 생명이 없는 이 물질에 촉매작용을 일으키는데, 그들 자신을 통하여 생명의 영 섬광을 나누어준다. 그리고 곧 불활성의 원형틀들은 살아있는 물질들이 된다.

36:3.4 (399.6) **생명의 섬광—생명의 신비—**은 생명운반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증여된다. 그들은 그러한 활동행위들을 감독하는 것이 사실이며, 생명 원형질 자체를 조직하지만, 살아있는 원형질의 근본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이는 우주 어머니 영이다. 육체에 생기를 주고 마음의 전조를 가져오는 에너지 섬광은 무한한 영의 창조 딸로부터 나온다.

36:3.5 (399.7) **생명의 증여에 있어서** 생명운반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본성들을 전혀 전달하지 않으며, 생명의 새로운 계층들이 계획되는 그 구체들에서도 그러하다. 그러한 경우에 그들은 단지 생명의 섬광을 시작하고 전달할 뿐이며, 정해진 계획들과 원형틀들의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 명세들에 따라서 물질의 필요한 변혁을 시작한다. 생명운반자들은 실존하는 물질적 계층의 그렇지 않다면 불활성인 요소들을 동요하고, 조직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살아있는 촉매 현존이다.

36:3.6 (400.1) **행성 무리단에 속한** 생명운반자들에게는 행성의 시간으로 약 50만 년에 해당하는, 새로운 세계에 생명을 수립하도록 어떤 특정 기간이 주어져 있다. 이 기간의 만료.

행성 생명의 특정한 발전적 달성에 의해 표시되는, 그때에는 그들은 이식(移植)하는 수고를 마치며, 그 후에는 그 행성의 생명에게 새롭거나 추가적인 어떤 것을 추가시키지 않는다.

36:3.7 (400.2) 생명 수립과 필사 지위의 인간 창조체들의 창발 사이의 시대들 동안, 생명운반자들은 생명 환경을 조종하도록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생물학적 진화의 과정을 호의적으로 유도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오랜 동안 하는 일이다.

36:3.8 (400.3) 새로운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명운반자들이 의지, 도덕적 결단과 영적 선택을 가진 존재를 창출하는 일에 일단 성공하게 되면, 그때에 그곳에서 그들의 일이 종료된다.—그들은 종료되었다. 그들은 진화하는 생명을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다. 이 시점 이후로 살아있는 물체들의 진화는 이미 전해졌고 수립된, 행성 생명 공식들과 원형틀들인, 선천적인 본성과 성향의 자질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생명운반자들은 의지로 실험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은 도덕적

창조체들을 지배하거나 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36:3.9 (400.4) 행성영주가 도착함에 따라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한다, 그러나 두 명의 상급 운반자들과 열 두 보호관리자들은, 일시적인 포기 서약을 함으로써, 생명 원형질의 더 나아간 발전과 보전의 문제에 있어서 행성에 충고자들로써 무기한 자원할 수 있다. 그러한 두 아들과 그들의 열 두 연관-동료들이 현재에도 유란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다.

제 4 장. 멜기세덱 생명운반자

36:4.1 (400.5) 네바돈 전역을 통하여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모든 지역체계에는 멜기세덱들이 생명운반자들의 역할을 담당해 온 단 하나의 구체가 존재한다. 이 거주지는 체계 아(亞)중간(中間) 세계들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그것들 각각에는 물질적으로 변형된 멜기세덱 아들이 아들관계의 물질적 계층의 선택된 딸과 짝을 짓는다. 그러한 아(亞)중간 세계들의 어머니 이브들은 관할 체계 본부로부터 파견되며, 체계 주권자가 자기 구체에 있는

물질 딸들에게 제시한 부름에 응답한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지정된 멜기세덱 생명운반자에 의해 선택된다.

36:4.2 (400.6) 멜기세덱 생명운반자와 물질 딸의 자손들은
아(亞)중간자들이라고 알려져 있다. 천상(天上)의
창조체들인 그러한 종족의 멜기세덱 아버지는 그의
독특한 생명 기능의 행성을 결국에는 떠나며, 우주
존재들의 이 특별한 계층인 어머니 이브도 역시 행성
자손의 일곱 번째 세대가 출현할 때 떠난다. 그때에는
그러한 세계의 감독이 그녀의 맏아들에게 지워진다.

36:4.3 (400.7) 아(亞)중간 창조체들은 그들이 표준시간으로
1,000세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장엄한 세계에서 살며
존재들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한다; 그 후에 그들은
세라핌천사의 운송에 의해 옮겨진다. 아(亞)중간자들은 그
이후부터 재생산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데 왜냐하면
세라핌천사 안에 들도록 준비하면서 그들이 거치는
비(非)물질화 기법이 그들로부터 번식 특권을 언제까지나
제거시키기 때문이다.

36:4.4 (400.8) 이 존재들의 현재 지위는 필사 또는 불멸이라고
간주하기가 심히 어려우며, 그들은 확실하게 인간적 또는

신성한 것으로 구분될 수 없다. 이 창조체들에는 조절자가 거주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멸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들을 필사 존재로 볼 수 없다; 어떤 아(亞)중간자도 죽음을 체험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네바돈에서 태어난 모든 아(亞)중간자들이 오늘날 살아 있으며, 그들이 태어난 세계들에서, 어떤 중간적인 구체에서, 또는 최종자 집단 세계의 구원자별 아(亞)중간 구체에서 기능하고 있다.

36:4.5 (401.1) 최종자의 구원자별 세계들. 멜기세덱 생명운반자들은, 연관된 어머니 이브들과 마찬가지로, 체계 아(亞)중간 구체들로부터, 그들의 자손들 역시 모이게 운명되어진, 구원자별 순환회로의 최종자 세계들로 간다.

36:4.6 (401.2) 구원자별 순환회로의 일곱 1차 세계들의 다섯 번째 집단이 최종자들의 네바돈 세계들이라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멜기세덱 생명운반자들과 물질 딸들의 자녀들은 최종자의 일곱 번째 세계, 구원자별 아(亞)중간 구체에서 산다.

36:4.7 (401.3) 최종자들의 일곱 1차 세계들의 위성들은 네바돈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초우주와 중앙우주의 개인성들의 집합장소이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멜기세덱 대학을 포함하는 490개 세계들의 문화세계들과 훈련 구체들 전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반면,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학교들과 수많은 제한지대들이 있다. 이것은 최종자들의 관할 하에 있는 49개 구체들에서 특별히 그러하다.

36:4.8 (401.4) 아(亞)중간 창조체들의 목적은 현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개인성들이 우주 진화에 있어서 어떤 미래적 결국 생겨짐을 준비하면서 일곱 번째 최종자 세계에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亞)중간자 종족들에 관한 우리들의 질문은 항상 최종자들을 참조한다, 그리고 최종자들은 그들의 피보호자의 운명에 대한 토론을 항상 거절한다. 아(亞)중간자들의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불확실성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오르본톤에 있는 각각의 지역우주가 이 신비스러운 존재들의 그러한 축적된 집단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멜기세덱 생명운반자들은 그들의 아(亞)중간자 자녀들이 언젠가는

궁극자 하느님으로부터 아(亞)절대성의 초월적이고 영원한 영을 자질로서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제 5 장. 일곱 보조 마음-영(靈)

36:5.1 (401.5) 원시 세계들에서 유기체 진화과정을 조절하는 것, 진화가 왜 우연한 현상이 아니고 의도적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일곱 보조 마음-영들의 현존이다. 이 보조자들은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작용을 통해 지능(知性) 생명의 보다 낮은 계층들에게로 확장하는 무한한 영의 마음 사명활동의 그 기능을 의미한다. 보조자들은 우주 어머니 영의 자녀들이며 영역들의 물질적 마음들에 대한 그녀의 개인적 사명활동을 이룬다. 어디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그러한 마음이 현시되면, 이들 영들이 다양하게 기능한다.

36:5.2 (401.6) 일곱 보조 마음-영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 해당하는 이름들로 불린다: 직관, 납득, 용기, 지식, 조언, 경배, 그리고 지혜이다. 이 마음-영들은 거주민이 사는 모든 세계들 안으로 서로 다른 차별적 충동으로 그들의 영향을 보내며, 각각은, 기능을 위해 그 동료들이 접수와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는 정도와는 아주 별도로, 현시활동을 위해 접수-작용인 접수성 수용능력을 찾는다.

36:5.3 (401.7)

생명운반자 본부세계의 보조 영들의 중앙 거점들은 어떤 세계에서든지 그리고 지적 상태의 주어진 어떤 살아있는 유기체에서든지 보조자들의 마음 기능의 범위와 본질특성들을 생명운반자 감독자들에게 나타내 보인다. 이 생명-마음 정착들은 처음 다섯 보조자들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마음 기능의 완전한 지표이다. 그러나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의 보조 영들—경배와 지혜—에 대하여서 이 중앙 거점들은 단지 질적인 기능만을 기록한다. 경배의 보조자와 지혜의 보조자의 양적인 활동성은, 구원자별에 있는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즉각적인 현존 안으로 등록되며, 우주 어머니 영의 개인적 체험이 된다.

36:5.4 (402.1)

일곱 보조 마음-영들은 항상 생명운반자들과 동행하여 새로운 행성으로 간다. 그러나 그들은 실존개체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순환회로들과 더 유사하다. 일곱 우주 보조자들의 영들은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우주 현존과 동떨어진 개인성들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실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의식 차원이고 그들의 창조 어머니의 행동과 현존에 항상 종속된다.

36:5.5 (402.2) 이 일곱 보조 마음-영들을 적당하게 표현할만한 단어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그것들은 체험적 마음의 보다 낮은 차원들의 사명활동자들이며, 진화적 달성의 순서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36:5.6 (402.3) 1. 직관의 영—신속한 감지, 원시적인 물리적 그리고 선천적 반사 본능, 방향성이 있고 또한 그 밖의 모든 마음 창조체들의 자아-보존적인 자질; 보조자들 중에서 동물 생명의 하급 계층들에서 아주 널리 기능하는 유일한 보조자이며, 기계적 마음의 학습능력이 없는 차원과 광범위한 기능적 접촉을 만드는 유일한 보조자.

36:5.7 (402.4) 2. 납득의 영—조화-협동의 충동, 자발적이며 명백하게 자동적인 관념들의 관계적-연합. 이것은 획득된 지식을 조화-협동하는 재능, 즉 신속한 추론, 재빠른 판단, 그리고 즉각적 결정의 현상이다.

36:5.8 (402.5) 3. 용기의 영—충성 자질—개인 존재들 안에서, 성격 획득의 기본, 도덕적 정력과 영적 용감성의 지적 근원. 사실에 의해 깨우쳐지고 진리에 의해 영감을 받을 때, 이것은 지적이고 양심적인 자아-방향결정의 경로에 따라 진화적 상승의 충동을 일으키는 비결이 된다.

36:5.9 (402.6) 4. 지식의 영—호기심—모험과 발견의 모체(母體), 과학적 영; 용기의 영와 조언의 영의 안내자이며 신실한 연관-동료이다; 용기의 자질들을 유용하고 진보적인 성장의 길로 지도하는 충동.

36:5.10 (402.7) 5. 조언의 영—사회적 충동, 종(種) 협동 자질; 그들의 동료들과 협동을 이루는 의지 창조체들의 능력; 다소 하등 창조체들 사이의 군생(群生) 본능의 기원.

36:5.11 (402.8) 6. 경배의 영—종교적 자극, 마음 창조체들을 필사자 실존에서의 두개의 기본적인 등급으로 분류하는 최초의 차별적 충동. 경배의 영은 그와 관계적-연합된 창조체를 마음 자질이 있으나 혼이 없는 창조체인 동물로부터 언제까지나 구별한다. 경배는 영적-상승 후보자의 자격이 있다는 상징이다.

36:5.12 (402.9) 7. 지혜의 영—모든 도덕적 창조체들의 계층적으로, 그리고 진보적으로 진화하여 전진하려는 선천적 경향. 이것은 보조자들에서 가장 높으며, 영 조화-협동자이자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의 활동을 표현하는 영이다. 이 영은 실존의 상승 규모의 실천적이고 효력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마음 창조체들의 그

태생적 충동의 비밀이다; 살아있는 것들의 이 재능은,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의 생존하려는 능력을 그리고, 생존에서, 관련된 유기체의 마음 안에서 나머지 여섯 정신적 사명활동자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인 그 각각의 모든 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과거 체험과 현재 기회들의 조화-협동을 활용하려는 것을 설명한다. 지혜는 지적 실행의 절정(絶頂)이다. 지혜는 순수하게 정신적이고 도덕적 실존의 목표이다.

36:5.13 (403.1) 보조 마음-영들은 체험적으로 성장하지만, 그들은 결코 개인적으로 될 수 없다. 그들은 기능적으로 진화하며, 동물 계층들 안에 있는 처음 다섯 가지의 기능은 인간 지능에서와 같은 모든 일곱 보조자의 기능에서 어느 정도까지 필수적이다. 이 동물 관계는 보조자들을 인간 마음으로서 더욱 실천적으로 효력을 나타내도록 만든다; 따라서 동물은 사람의 육체적 진화뿐만 아니라, 사람의 지적 진화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필수적이다.

36:5.14 (403.2) 힘 중심들과 물리통제자들이 우주의 생명이 없는 기세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이 마음-보조자들은 지능적 지위의 창조체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그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마음 순환회로들에서 매우 귀중한 봉사를 수행하며, 전(前) 보조자 마음 차원들, 학습 불가능 또는 기계적 마음의 차원들의 통제자들 그리고 지도자들로 또한 봉사하는 주(主)물리통제자들에게 효력적인 협동자이기도 하다.

36:5.15 (403.3) 체험으로부터 배우는 능력이 나타나기 전의 살아있는 마음은 주(主)물리통제자들이 사명을 베푸는 권역이다. 신성(神性)을 인지하고 신(神)을 경배하는 능력을 성취하기 이전의 창조체 마음은 보조 영들의 독자적인 권역이다. 창조체 지능의 영적 반응이 나타남으로, 것처럼 창조되는 마음들은 즉시 초(超)마음으로 되며, 순간적으로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영 순환주기들 안으로 회로연결이 이루어진다.

36:5.16 (403.4) 보조 마음-영들은 신성한 사명활동자,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성령, 개인적 현존의 영의 다양하고도 매우 높은 영적인 기능에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진화적인 사람에게 바로 이 영의 출현보다 기능적으로 앞서며 그것을 예비한다. 보조자들은 우주

어머니 영으로 하여금 지역우주의 살아있는 물질적 창조체들과의 다양한 접촉 그리고 그들에 대한 통제를 제공하지만, 전(前)개인적 차원들에서 활동할 때 그들은 최극존재 안에서 반항하지 않는다.

36:5.17 (403.5) 비(非)영적 마음은 영-에너지 현시활동이거나 또는 물리적-에너지 현상이다. 인간 마음, 개인적 마음조차도 영 정체화구현을 떠나서는 생존하는 본질특성이 없다. 마음은 하나의 신성 증여이다, 그러나 그것이 영 통찰력 없이 기능할 때 그리고 그것이 생존을 갈망하고 경배하는 능력이 없을 때에는 불멸이 아니다.

제 6 장. 살아있는 기세

36:6.1 (403.6) 생명은 기능구조적인 동시에 활력적—물질적이며 영적—이다. 유란시아 물리학자들과 화학자들은 식물 그리고 동물 생명의 원형질 형태들에 대한 압득에 있어서 계속 진보를 이루겠지만, 그들은 결코 살아있는 유기체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생명은 모든 에너지 현시활동들과는 다른 어떤 것이다; 물리적 창조체들의 물질적 생명이라도 물질 속에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36:6.2 (403.7)

물질적 사물들은 독립적인 실존을 누릴 수 있겠지만,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발생된다. 마음은 오직 이전-실존 마음으로부터만 유래될 수 있다. 영은 영 선조(先祖)들로부터만 기원된다. 창조체가 생명의 형태들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오직 창조자 개인성 또는 창조적 기세만이 활성화시키는 살아있는 섬광을 제공할 수 있다.

36:6.3 (404.1)

생명운반자들은 살아있는 존재들의 물질적 형태들 또는 물리적 원형틀들을 조직할 수 있지만, 영은 생명의 최초 섬광을 제공하고 마음 자질을 증여한다. 생명운반자들이 그들의 구원자별 세계들에서 조직하는 실험적 생명의 살아있는 형태들이라도 번식 힘은 항상 결여되어 있다. 생명 공식들과 생명의 원형틀들이 정확하게 조합되고 알맞게 조직화 되었을 때, 생명운반자의 현존은 생명을 시작시키기에 충분하지만, 그러한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필수적인 두 속성들—마음 자질과 번식 힘—이 결여되어 있다. 동물 마음과 인간 마음은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선물인데, 일곱 보조 마음-영들을 통하여 기능한다, 반면에 재생산할 수 있는 창조체 능력은 생명운반자들에 의해 개시된 선조

생명 원형질에게 우주 영이 구체적이고도 개인적으로 나누어준 것이다.

36:6.4 (404.2) 생명운반자들이 생명의 원형틀들을 설계하고, 그들이 에너지 체계들에 대한 조직한 후에, 추가적인 현상이 반드시 발생되어야만 한다; “생명의 숨결”이 생명 없는 이 형체들 속으로 주입되어야만 한다. 하느님의 아들들이 생명의 형태들을 만들 수 있지만, 생명을 일으키는 섬광을 실제로 기여하는 이는 하느님의 영이다. 그리고 그렇게 주입된 생명을 다 쓰면, 그러면 다시 남아있는 물질적 몸체는 죽은 물체가 된다. 증여된 생명이 소진되었을 때, 몸체는 생명운반자들에 의해 그들이 그러한 에너지-물질의 가시적인 관계적-연합을 이끌어 내는 생명 자질수여를 위한 과도기 매체로서 봉사하도록 빌려졌던, 물질적 우주의 품속으로 되돌아간다.

36:6.5 (404.3) 생명운반자들에 의해 식물과 동물에게 증여된 생명은 식물이나 동물이 죽었을 때 생명운반자들에게 되돌아가지 않는다. 살아있는 그러한 물체로부터 떠나가는 생명은 정체성도 없고 개인성도 없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남지 않는다. 그것이 실존하던

동안 그리고 그것이 물질로 된 몸체 속에 머물렀을 때, 그것은 변화를 겪는다; 그것은 에너지 진화를 겪어가며 우주의 조화우주 기세의 한 부분으로서만 살아 남는다; 그것은 개별적 생명으로 살아남지 않는다. 필사 창조체의 생존은 필사자 마음속에 있는 불멸 혼의 진화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36:6.6 (404.4) 우리는 생명을 "에너지"와 "기세"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둘 모두 아니다. 기세-에너지는 다양한 중력 반응이다; 생명은 그렇지 않다. 원형들은 모든 중력-반응 의무들을 이미 다 마친 에너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중력에 반응하지 않는다. 생명은, 그렇게, 어떤 원형들-그렇지 않았다면 분리된 체계인—물질적, 마음적 또는 영적 에너지 배열의 생기(生氣)를 구성한다.

36:6.7 (404.5) 진화하는 행성들에는 우리들에게 전체적으로 분명하지는 않는, 생명의 합성과 관련된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생명운반자들의 전기화학적 공식의 물리적 조직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생명-활성화 섬광의 본질과 근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납득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하여 그리고 영에 의해 흐르는 것을 안다. 주(主) 영들이, 모든 창조체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생명의 강의 칠중(七重) 통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행성에 생명이 증여되는 최초의 에피소드에 감독하는 주(主) 영이 참여하는 그 기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자신하기로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 역시 새로운 세계에서의 이 생명 개시에 어떤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본질을 전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우주 어머니 영이 생명 없는 원형틀들을 실재적으로 생명을 주고 그렇게 활성화된 원형질에게 유기체적 번식의 특권을 나누어 준 것을 안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때로는 시간과 공간의 최극 창조자들로 정의되는, 칠중 하느님의 차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유란시아 필사자들—단순하게 개념이 아버지 안에 선천적이고, 아들 안에서의 표현이며, 영 안에서의 생명 실현화라는 것—보다 더 알지 못한다.

36:6.8 (405.1) [감독하는 계시무리단의 멜기세덱 우두머리의 요청에 의하여, 이러한 능력으로 유란시아에 관찰자로 머물고 활동하는 보론다덱 아들에 의해 쓰여 짐.]

제 37 편 지역우주의 개인성

37:0.1 (406.1) 네바돈 안에 있는 모든 개인성의 꼭대기에는 창조자이자 주(主)아들, 미가엘. 우주의 아버지이자 주권자가 있다. 신성에서 조화-협동이신 분이며 창조적 속성에서 보완이신 분은 지역우주의 어머니 영, 구원자별의 신성한 사명활동자이다, 그리고 이 창조자들은 참으로 글자 그대로의 감각에서, 네바돈의 모든 토착 창조체들의 아버지-아들과 그리고 영-어머니이다.

37:0.2 (406.2) 앞에 있는 글들은 아들관계의 창조된 계층들을 다루었다;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는 사명을 베푸는 영들과 아들관계의 상승하는 계층들에 대해 묘사하게 될 것이다. 이번 글은 주로 중간적인 집단, 우주 도움자들을 다루겠지만, 네바돈에 위치해 있는 보다 높은 영들 그리고 지역우주에서의 영구 시민관계의 계층들의 일정 부분에 대해 간략한 고찰도 제공할 것이다.

제 1 장. 우주 도움자

37:1.1 (406.3) 일반적으로 이 범주에 속하는 독특한 계층들 중 많은 부분은 계시되지 않지만, 이 글들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주 도움자들은 다음의 일곱 계층들을 포함 한다:

37:1.2 (406.4) 1. 빛나는 새벽별

37:1.3 (406.5) 2. 찬란한 저녁별

37:1.4 (406.6) 3. 천사장

37:1.5 (406.7) 4. 지고자 보좌관

37:1.6 (406.8) 5. 높은 위원

37:1.7 (406.9) 6. 천상(天上)의 감독자

37:1.8 (406.10) 7. 맨션세계 선생

37:1.9 (406.11) 우주 도움자들의 첫 번째 계층에 해당하는 빛나는 새벽별들 경우에는, 각 지역우주마다 꼭 한 명씩밖에 없으며, 그는 지역우주에 있어서 모든 토착 창조체들 중에서 첫-탄생이다. 우리 우주의 빛나는 새벽별은 구원자별의 가브리엘로 알려져 있다. 그는 네바돈 전체의 우두머리 집행자이며, 주권자 아들의 개인 대표자로서 그리고 그의 창조적 배우자를 위한 대변자로서 기능한다.

37:1.10 (406.12) 네바돈의 초기 시절에, 가브리엘은 미가엘과 창조영과 함께 아주 외롭게 일하였다. 우주가 성장하고 행정-관리적 문제들이 증가되면서, 그에게는 미(未)계시보좌관들로 구성된 개인 참모진이 제공되었으며, 결국에는 이 집단은 저녁별들의 네바돈 무리단이 창조로서 증강되었다.

제 2 장. 찬란한 저녁별

37:2.1 (407.1) 찬란한 이 창조체들은 멜기세덱들에 의해 계획되었으며, 그 다음에는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 그들은 여러 능력으로 봉사하지만 주로 지역우주 최고집행자인 가브리엘의 연락 사무관들로서 봉사한다. 네바돈에 있는 각 별자리와 체계의 수도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들 존재들이 그의 대표자로서 기능한다.

37:2.2 (407.2) 네바돈의 최고집행자로서의 가브리엘은 구원자별의 대부분의 비밀회의에서 직권 상 의장이거나 또는 관찰자 지위를 지낸바 있으며, 1,000개에 달하는 이 회의들이 동시에 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 찬란한 저녁별들이 가브리엘을 대표 한다; 그가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이들 특급천사들이 이 한계들을 보상해 준다. 그들은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의 무리단을 대신하여 비슷한 봉사를 수행한다.

37:2.3 (407.3) 행정-관리적 임무들에 직접 관여하지만, 가브리엘은 찬란한 저녁별들을 통하여 다른 모든 위상의 우주 삶과 관련사들과의 접촉을 유지한다. 그들은 그가 행성 여행을 할 때 항상 그와 함께 하며 그의 개인 대표자들로서 특별한 임무를 띠고 각 행성들로 가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한 경우에 그들은 때로 “주님의 천사”로 알려져 왔다. 그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과 모임 앞에서 빛나는 새벽별을 대표하기 위해 자주 유버사에 가지만, 그들이 오르본톤의 경계선 너머로 여행하는 일은 드물다.

37:2.4 (407.4) 찬란한 저녁별들은 독특한 이중적 계층이며, 일부는 창조된 존엄자 그리고 나머지는 봉사를 달성한 이들을 포용하고 있다. 이들 특급천사들의 네바돈 무리단은 지금 13,641명이다. 창조된 존엄자가 4,832명 있고, 반면에 이 고양된 임무의 목표를 달성한 8,809명의 상승하는 영들이 있다. 상승하는 이들 저녁별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우주 생애를 세라핌천사로서 시작한다; 그 이외에는 창조체의 미(未)계시 차원들로부터 상승되었다. 이 높은 무리단은 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하지 않는 한, 달성 목표로서 상승 후보자들에게 결코 접근하지 않는다.

37:2.5 (407.5) 찬란한 저녁별들의 둘 모두의 유형은 모론시아 개인성들과 일정 유형의 초(超)필사 물질적 존재들이 쉽게 볼 수 있다. 이 흥미롭고도 다재다능한 계층의 창조된 존재들은 그들의 개인적 현존과 관계없이 현시될 수 있는 영 기세를 소유한다.

37:2.6 (407.6) 이들 특급천사들의 우두머리는 가발리아인데, 네바돈에서 이 계층의 첫-탄생이다. 그리스도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의 승리를 거둔 증여로부터 돌아온 이후로, 가발리아는 상승하는 필사자 사명활동에 배정되어있다, 유란시아 시간으로 지난 1,900년 동안 그의 연관-동료 갈란시아가 유지해 온 예루셈에 있는 본부에서, 그는 자기 시간의 절반 정도를 보낸다. 갈란시아는 이 높은 상태를 달성한 상승하는 특급천사의 첫 번째이다.

37:2.7 (407.7) 많은 임무들에서 관례상 쌍으로 관계적-연합하는 외에, 찬란한 저녁별들은 어떠한 집단화 또는 일단의 조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필사자의 상승 생애와 관계되는 임무들에 광범위하게 배정되지는 않지만, 그 일에 임명되었을 때에는 결코 단독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쌍으로—하나는 창조된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상승하는 저녁별—기능한다.

37:2.8 (407.8) 저녁별들의 높은 임무들 가운데 하나는, 미가엘이 그의 유란시아에 증여되었을 때 가브리엘이 동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보날 증여 아들들이 그들의 행성 임무를 수행할 때 동행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두 특급천사들은, 이 일들에 배정된 천사장들 그리고 다른 모든 존재들의 공동 지휘관으로 봉사하는, 그러한 사명에 올라있는 개인성들이다. 의의(意義)깊은 시간과 시대에, 아보날 증여 아들에게 “당신 형제의 일을 돌보소서.”라고 말하는 이는 이들 특급천사 지휘관의 선임자이다.

37:2.9 (408.1) 거주되는 세계의 증여이후시대, 또는 동이 트는 영적 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능하는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로 구성된 행성 무리단에게도 이 특급천사들과

비슷한 쌍들이 배정된다. 그러한 임무에 있어서 저녁별들은 영역의 필사자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교사 아들들의 무리단 사이에서 연락이자 역할을 한다.

37:2.10 (408.2) 저녁별들의 세계들. 일곱 구원자별 세계들 중 여섯 번째 집단과 그들의 42개 종속 위성들은 찬란한 저녁별들의 관리-행정에 배정되어 있다. 1차 일곱 세계들은 이 특급천사들 중 창조된 계층이 주관하는 반면, 종속된 위성들은 상승하는 저녁별들에 의해 관리-행정된다.

37:2.11 (408.3) 처음 세 개의 세계의 위성들은 지역우주의 영 개인성들에게 전념된 교사 아들들과 저녁별들의 학교로 바쳐져 있다. 그 다음 세 집단들은 상승하고 있는 필사자들의 훈련에 전념된 비슷한 공동 학교들이 차지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 세계에 속한 종속적인 위성들은 교사 아들들, 저녁별들, 그리고 최종자의 삼원적 심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 이 특급천사들은 최종자 무리단의 지역우주 작업에 밀접하게 정체성을 확인 되어 왔고,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교사 아들들과 연관해 오고 있다. 최종자 작업 집단에 부속된

중력 메신저들과 저녁별들 사이에는 엄청난 힘과 중요성으로 이루어진 연락관이 존재한다. 일곱 번째 1차적 세계 자체는, 최극위 하느님 개인성의 초우주 현시활동이 완성된 창발이 됨에 따라 결과로서 일어나는 교사 아들들, 최종자 그리고 저녁별들 사이에서 얻어질, 어떤 미래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미(未)계시 일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제 3 장. 천사장

37:3.1 (408.4) 천사장들은 창조자 아들과 우주 어머니 영의 자손들이다. 그들은 지역우주에서 많은 숫자로 탄생되어 있는 높은 영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유형이며, 가장 최근에 등록된 숫자를 보면 네바돈에 거의 800,000명이었다.

37:3.2 (408.5) 천사장들은 보통 가브리엘의 관할 아래에 있지 않은, 지역우주 개인성들 중 소수 집단의 하나이다. 그들은 어떤 방면으로도 우주의 일상적인 관리-행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오로지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들의 상승하는 생애를 촉진하는 일에 그리고 창조체 생존 업무에 전념한다. 보통은 빛나는 새벽별의 지도에 따르지 않지만, 천사장들은 때로 그의 권한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그들은

또한, 너희의 세계에 생명을 이식한 것에 대한 서술에서 묘사된 어떤 활동행위로 예증된 바와 같이, 저녁별들과 같은 우주 도움자들에 해당하는 다른 존재들과 협동한다.

37:3.3 (408.6) 네바돈의 천사장 무리단은 이 계층의 첫-태생에 의해 지도되며, 조금 최근 시대에는 천사장들의 분과 본부가 유란시아에서 유지되어 왔다. 네바돈 바깥에서 온 학생 방문자들의 관심을 즉시 잡아끌고 있는 것은 이 보기 드문 사실이다. 우주내부의 활동행위에 관한 그들의 초기 관찰에서는, 찬란한 저녁별들의 많은 상승 활동들이 지역체계의 수도, 사타니아로부터 지도를 받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서, 그들은 특정한 천사장 활동들이 유란시아라 불리는 작고도 겉보기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주세계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나서 유란시아에서 미가엘이 증여되었음의 계시와 그리고 즉각적으로 민감해지는 너희와 너희의 초라한 구체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잇따라 일어난다.

37:3.4 (409.1) 너희는, 너희의 초라하고 혼동에 빠진 행성이 파라다이스상승 전체기획과 상관을 가지는 어떤 천사장

활동에서의 우주관리-행정과 지도에 대한 하나의 분과 본부가 되었다는 사실의 의의(意義)를 파악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미가엘의 증여 세계위에 또 다른 상승 활동이 미래에 집중되어짐을 예감하며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는 주(主)의 개인적 약속에 엄청나고도 엄숙한 의미를 부여한다.

37:3.5 (409.2) 일반적으로, 천사장들은 아들관계의 아보날 계층의 봉사와 봉사사명에 배정되지만, 다양한 사명활동의 영들이 활동하는 모든 위상에서 광범위한 예비훈련을 통과해야만 그렇게 된다. 거주민이 사는 세계로 가는 파라다이스 증여 아들 각자마다 100명으로 된 하나의 무리단이 동행하며, 그 증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그에게 배정된다. 만약에 치안법관 아들이 행성의 임시 통치자가 되어야만 할 때에는, 이 천사장들이 그 구체에 있는 모든 천상(天上)의 생명을 감독하는 우두머리들로서 활동한다.

37:3.6 (409.3) 파라다이스 아보날의 모든 행성 임무들에서, 재판 활동, 치안법관 임무, 또는 증여 육신화를 포함하든지 관계없이 두 명의 선임 천사장들은, 항상 개인 도움자로서

배정된다. 이 파라다이스 아들이 영역의 심판을 완결하고
그리고 죽은 자가 등록하도록 불리울 때(소위 말하는
부활), 잠자고 있는 개인성들의 세라핌천사 수호자들이
“천사장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참말이다.
한 섭리시대 종결의 점호(點呼)가 수행 천사장에 의해
공표된다. 이분이 부활의 천사장이며, 때로는 “미가엘의
천사장”이라고 불린다.

37:3.7 (409.4) 천사장들의 세계들. 구원자별 세계들을 에워싸고
있는 일곱 번째 집단은 그들 연관된 위성들과 함께
천사장들에게 배속되어 있다. 1번 구체와 그 종속된 여섯
보조 위성들 모두는 개인성 기록 보관자들에게 차지된다.
이 엄청난 기록자 무리단은 시간의 각 필사자가 태어난
이후 우주 생애를 거쳐서 그러한 개별존재가 초우주
체제를 향해 구원자별을 떠나든지 아니면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명령에 따라 “기록된 실존의 자국을 지우게” 될
때까지 그 기록을 정리하는 일로 분주하게 지낸다.

37:3.8 (409.5) 필사자가 죽은 이후부터 재(再)개인성구현되는,
죽음에서 부활하기까지의 사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개인성 기록들과 정체화구현 보증서들이 분류되고 정리되며 보관되는 일이 바로 이들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제 4 장. 지고(至高)보좌관

37:4.1 (409.6) 지고(至高)보좌관들은 지역우주 밖에서 기원된, 지역 창조에게 그들의 관찰자, 또는 중앙과 초우주 대표자들로써 일시적으로 배정되는, 자원하는 존재들의 집단이다. 그들의 숫자는 항상 변하지만 언제든지 수백만 명에 이른다.

37:4.2 (409.7) 네바돈 전체를 오르본톤의 관념 및 파라다이스의 이상들과 더욱 충만한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으로 우리들 토착 개인성들을 도우려는 목적에서 우리들과 함께 머무는 존재들인, 지혜의 완전자들, 신성한 조연자들, 우주 검열자들,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 삼위일체화 아들들, 단독 메신저들, 특급 천사들, 2품천사들, 3품천사들, 그리고 다른 인자한 사명활동자들과 같은, 그러한 파라다이스-기원 존재들의 사명활동과 도움으로부터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혜택을 받는다.

37:4.3 (410.1) 이들 존재 중 누구든지 자원하여 네바돈에서 봉사할 수 있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우리들의 관할권

밖에 있지만, 그러나 배정받아 기능할 때에는, 초우주 그리고 중앙우주의 그러한 개인성들은, 비록 그들이 보다 높은 우주의 대표자로서 기능하고 그리고 우리 영역에서의 그들의 임무를 이루는 지도들에 따라 일하기를 지속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머무는 지역우주의 규정으로부터 전적으로 면제되지는 않는다. 그들의 일반 본부는 연합으로 늘 계신이의 구원자별 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들은 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대사(大使)의 총괄감독에 따르면서 네바돈에서 작용한다. 소속되지 않은 집단에서 봉사할 때, 보다 높은 영역들에서 온 이들 개인성들은 일상적으로 자아-방향결정 하지만, 요청에 의해 봉사할 때 그들은 배정된 기능 영역의 감독하는 지도자들의 관할 밑으로 자신들을 전적으로 맡기곤 한다.

37:4.4 (410.2) 지고(至高)보좌관들은 지역우주에서 그리고 별자리 능력에서 봉사한다, 그러나 체계나 행성 정부에는 직접적으로 소속되지 않는다. 아무튼, 그들은 지역우주 어디 곳에서도 기능할 수 있고 네바돈 활동의 어떤 위상—행정-관리적 집행자, 교육, 그리고 다른 분야들—이든지 배정될 수 있다.

37:4.5 (410.3)

이 무리단의 대부분은 네바돈 파라다이스 개인성들—연합으로 늘 계신이, 창조자 아들, 충심으로 늘 계신이, 치안법관 아들들, 그리고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을 돕는 일에 배속되어 있다. 지역창조 관련사들의 활동행위에서, 어떤 세부사항들은, 때로는 지역우주의 모든 토착 개인성들이 실천적으로 아는 지식에서,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된다. 어떤 앞선 계획들 그리고 복잡한 규정들이, 역시 보다 더 성숙되고 멀리 내다보는 지고(至高)보좌관 무리단에 의해 더 잘 파악되고 더 충분하게 납득되며, 또한 그들이 우주 통치자들과 행정-관리자들에게 아주 높게 봉사할 수 있는 상황들과 그리고 기타 많은 다른 경우가 그렇다.

제 5 장. 높은 위원

37:5.1 (410.4)

높은 위원들은 영-융합 상승 필사자들이다; 그들은 조절자와 융합된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미가엘의 증여 이후로 모든 유란시아 필사자들에게 기대되는 높은 운명이 되는 그것, 조절자 융합을 향한 필사 후보자의 우주-상승 생애에 대해 매우 잘 납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와 비슷한 세계들의 증여 이전(以前) 시대에 있는 모든 필사자가 가지는 독점적 운명이 아니며,

거주자들에게 생각 조절자들이 결코 영구하게 내주되지 않는 또 다른 유형의 세계도 있다. 그러한 필사자들은 파라다이스 증여의 신비 감시자와의 연합으로 영구적으로 합친 적이 결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자들은 그들에게 과도기적으로 내주하여, 육신에서의 삶의 기간 동안 안내자와 원형틀로서 봉사한다. 이러한 일시적 체류 기간 동안 그들은 그들이 융합하기를 바라는 바로 그 존재 안에서 그들처럼, 불멸의 혼의 진화를 육성한다, 그러나 필사자 행로가 끝나면, 그들은 일시적인 관계적-연합의 그 창조체들을 영원히 떠난다.

37:5.2 (410.5) 이 계층의 생존된 혼들은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개별존재화된 영의 단편(斷片)과의 영원한 융합으로써 불멸성을 달성한다. 그들은 적어도 네바돈에서는, 많은 수의 집단이 아니다. 맨션세계에 가면 너희가 이 영-융합 필사자들을 만나고 형제우애를 가지게 되겠지만, 그들은 구원자별에 이를 때까지만 너희의 파라다이스 경로에서 함께 하며, 거기서 그들은 멈추게 된다. 그들 중 일부는 그 후에 더 높은 우주 차원들로 상승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지역우주에서의 봉사를 위해 언제까지나 남아있게 된다;

하나의 등급으로 이르면, 그들은 파라다이스를 달성하도록 운명되어 있지는 않다.

37:5.3 (411.1) 조절자와 융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최종자가 될 수 없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지역우주 완전의 무리단에 소속되어진다. 그들은 "완전 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영으로 복종해온 것이다.

37:5.4 (411.2) 네바돈 완전의 무리단을 달성한 이후에 영-융합 상승자들은 우주 도움자들과로서의 배정을 수락할 수 있는데, 이 존재는 그들에게 열려있는 계속적인 체험적 성장의 큰길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역우주의 천상의 권한자들에게 물질세계의 진화하는 창조체들의 관점을 해석하는 높은 봉사를 하는 위원회의 후보자들이 된다.

37:5.5 (411.3) 높은 위원들은 행성에서 종족 위원들로서 자신들의 봉사를 시작한다. 이러한 역량에서 그들은 다양한 인간 종족들의 관점들을 해석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묘사한다. 그들은 필사 종족들의 대변자가 되어, 그들을 위해 자비와 공의(公義)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얻게 하려고 언제까지나

찾아 나서면서, 그들의 복지를 위해 최극으로 헌신한다.
종족 위원들은 끝없는 일련의 행성 위기들 속에서
기능하며, 투쟁하는 필사자들 전체 집단의 명확한
표현으로서 봉사한다.

37:5.6 (411.4) 거주되는 세계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오랜
체험을 가진 후에, 이 종족 위원들은 기능에서의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며, 결국에는 지역우주의 높은 위원들의
지위를 지역우주에서 달성한다. 네바돈에서 이러한 높은
위원들의 최근에 등록된 숫자는 15억 명보다 약간 더 많다.
이 존재들은 최종자는 아니지만, 그들의 탄생 영역에
위대한 봉사를 하는 긴 체험을 가진 상승하는 존재들이다.

37:5.7 (411.5) 우리는 가장 낮은 것으로부터 가장 높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법 재판소들에서 이들 위원들을 늘
발견한다. 그들이 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의 친구로서 활동하며, 판결에 관련된 자들의
전례(前例)와 환경 그리고 선천적 본성에 관해 주관하는
판사에게 자문한다.

37:5.8 (411.6) 높은 위원들은 다양한 공간의 메신저 무리에게,
시간의 사명활동하는 영들에게 항상 배속되어 있다.

그들은 다양한 우주 집회의 진행일정에서 만나게 되며, 바로 이들 필사자-지혜의 위원들이 항상 공간 세계에 대한 하느님의 아들들의 임무에 배속되고 있다.

37:5.9 (411.7) 공정함과 공의(公義)가, 고려되는 정책이나 절차가 시간의 진화 종족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압득을 요구할 때마다, 이들 위원이 자신들의 권고를 제시하기 위해 늘 옆에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말하도록 현재 제시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말하도록 항상 현재 제시되어 있다.

37:5.10 (411.8) 영-융합 필사자들의 세계들. 구원자별 순환회로에 있는 일곱 1차 세계들의 8번째 집단과 거기에 소속된 위성들은 오직 네바돈의 영-융합 필사자들만의 독점적인 소유물이다. 상승하는 조절자-융합 필사자들은 영-융합 거주민들이 초청한 손님들로서 여러 차례 즐겁고 유익한 체류 기간을 즐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계들과 관계를 갖지 않는다.

37:5.11 (411.9) 유버사와 파라다이스를 달성한 소수들을 제외하고, 이 세계들은 영-융합된 생존자들의 영구한 거주지이다. 그러한 필사자 상승의 계획된 한계는,

증강되는 그들의 체험이 지역우주 관리-행정의 미래 안정성과 다양성 강화를 계속하게 될 영구적인 진화인구 유지의 보장으로 인한, 지역우주의 선(善)에 반응한다. 이 존재들은 파라다이스를 달성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과도기 상승자들에 의해 달성되는 모든 것을 철저히 능가하는 네바돈 문제의 통달 안에서 체험적인 지혜를 달성한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 혼은 인간적인 것들과 신성한 것들의 독특한 혼합체로서 계속 존재하는데, 계속 신장하는 지혜로 그러한 이중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광범위하게 분리된 이 두 차원들에 대한 관점들을 점점 더 연합할 수 있게 된다.

제 6 장. 천상의 감독자

37:6.1 (412.1) 네바돈 교육 체계는 삼위일체 교사 아들과 멜기세덱 교육 무리단에 의해 공동으로 관리-운영되지만, 그것의 유지와 발전에 효과를 미치도록 계획된 그 일의 대부분은 천상의 감독자들에 의해 수행된다. 이 존재들은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계획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개별존재들을 포용하는 모집된 무리단이다. 네바돈에는 3백만 명이 넘는 그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 전체 영역에 대한 교육 충고자들로서

봉사하기위해 체험에 의해 분별화된 자원자들이다. 멜기세덱들의 구원자별 세계들에 있는 그들의 본부로부터, 이 감독자들은 상승하는 창조체들의 마음 훈련과 영 교육을 실시하도록 고안된 네바돈 학교 기법에 대한 검열자로 지역우주를 돌아다닌다.

37:6.2 (412.2) 이러한 마음 훈련과 영 교육은 인간이 기원하는 세계들로부터 체계 맨션세계들 그리고 예루셈과 연관된 다른 진보 구체들을 거쳐, 에덴시아에 배속된 70개의 사회화 영역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구원자별을 감싸고 있는 영 진보의 490개 구체들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된다. 우주 본부 자체에는 수많은 멜기세덱 학교들, 우주 아들들의 대학들, 세라핌천사 대학들, 그리고 교사 아들들과 연합으로 늘 계신이의 학교들이 있다. 증진되는 봉사와 개선되는 기능을 위해 우주의 다양한 개인성들에게 자격을 갖추게 하는 모든 가능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전체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학교이다.

37:6.3 (412.3) 많은 더 높은 학교들에서 채택된 방법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기술에 대한 인간적 개념을 능가하지만, 전체 교육 체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성격은 깨우쳐지는

체험에 의해 얻어진다. 교사들은 깨우침을 제공한다; 우주 정거장과 상승하는 자의 지위는 체험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 두 가지의 지혜로운 활용은 성격을 증강시킨다.

37:6.4 (412.4) 근본적으로, 네바돈 교육 체계는 너희로 하여금 임무에 배정되도록 대비시키고 그 다음에는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상적이고도 신성한 방법에 관한 지침을 받아들일 기회를 너희에게 제공한다. 너희에게는 수행될 분명한 임무가 주어져 있으며, 그와 동시에 너희는 너희에게 부과된 것을 실행하는 최상의 방법에 있어서 너희를 가르치도록 분별화된 선생들을 제공받고 있다. 교육에 대한 신성한 계획은 작업과 가르침의 긴밀한 관계적-연합을 위해 제공된다. 우리는 우리가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지를 너희에게 가르친다.

37:6.5 (412.5) 이러한 모든 훈련과 체험의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초우주의 더 높고 더 영적인 교육 구체들로 받아들여지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주어진 영역에서의

진보는 개별적이지만, 한 위상에서 다음 위상으로 옮겨지는 것은 대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37:6.6 (412.6) 영원의 진보는 오로지 영적 발전에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지적 습득도 역시 우주 교육의 일부분이다. 마음의 체험은 영적 지평의 확대와 동등하게 함께 넓어진다. 마음과 영은 훈련과 전진을 위한 서로 닮은 기회들을 제공받는다. 그러나 마음과 영의 이러한 모든 장엄한 훈련에서 너희는 필사 육신의 장애로부터 언제까지나 자유롭다. 너희는 너희의 분기되어 서로 갈라지는 영적 본성과 물질적 본성의 상충하는 다툼들을 늘 심판해야만 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물질적 사물을 향하는 원시적인 동물같은 성향들을 벗겨낸 지 오랜 후에, 너희는 마침내 영광스러운 마음의 통합된 추진력을 즐길 수 있도록 분별화된다.

37:6.7 (413.1) 네바돈 우주를 떠나기 전에, 유란시아 필사자들 대부분은 천상의 감독자들의 네바돈 무리단의 일원으로서 다소간의 시간 동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제 7 장. 맨션세계 교사

37:7.1 (413.2) 맨션세계 교사들은 모집되고 그리고 영화롭게 된 케루빔들이다. 네바돈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멜기세덱들에 의해 임명된다. 그들은 모론시아 삶의 교육 체계들 대부분에서 기능하며, 그들의 숫자는 필사자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월한다.

37:7.2 (413.3) 케루빔들과 사노빔들의 달성 차원에 있어서는, 맨션세계 교사들이 다음 장에서 더 많이 배려를 받아들일 것이며, 반면에 모론시아 삶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들로서의 그들은 그 이름의 글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이다.

제 8 장. 배정된 높은 영 계층

37:8.1 (413.4) 힘 중심들과 물리통제자들을 제외하고, 무한한 영의 계열에 해당하는 어떤 높은 기원의 영 존재들이 지역우주에 영구적으로 배정되어 있다. 무한한 영의 계열에 해당하는 더 높은 영 계층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존재들이 배정되어 있다:

37:8.2 (413.5) 단독 메신저들은, 지역우주 관리-행정에 기능적으로 배속되었을 때, 시간과 공간의 장애들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에 헤아릴 수 없는 귀중한 봉사를 베푼다. 그들이 그렇게 배치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역우주들에 있는 우리는 그들에 대한 그 어떤 권한도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독특한 이 존재들은 항상 우리들 문제의 해결과 그리고 우리 위임 명령들의 집행에서 기꺼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37:8.3 (413.6) 안도본시아는 우리 지역우주에 위치한 3차 우주 순환회로 감독자의 이름이다. 그는 오직 영 순환회로들과 모론시아 순환회로들에만 관계하고, 힘 지도자들의 관할 아래에 있는 것들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루시퍼 반란에 대해 시험하던 시기 동안 행성의 칼리가스티아가 배반하였을 때 바로 그가 유란시아를 고립시켰다.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에게 인사말을 보냄에 있어서, 그는 자신이 감독하는 우주 순환회로로 너희가 언젠가 복귀할 것에 대한 예상으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37:8.4 (413.7) 네바돈 인구조사 지도자인 살사시아는 구원자별의 가브리엘 구역 내에 본부를 유지한다. 그는 의지의 탄생과 죽음을 자동적으로 인지하며 지역우주에서 기능하는 의지창조체들의 정확한 숫자를 현재 값으로

등록한다. 그는 천사장들의 기록 세계들에 거주하는 개인성 기록자들과 가깝게 관계적-연합되어 일한다.

37:8.5 (413.8) 연관-동료 검열자 한 명이 구원자별에 거주한다. 그는 오르본톤의 최극집행자의 개인 대표자이다. 그의 연관-동료들인, 지역 체계들에 있는 배정된 파수자들 역시 오르본톤의 최극집행자의 대표자들이다.

37:8.6 (414.1) 우주화해자는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의 이동 재판소인데, 진화 세계들로부터 지역우주의 각 구역들은 물론 그 이상에서까지 기능한다. 이 심판관들은 유버사에 등록되어 있다; 네바돈에서 활동하는 정확한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추산하기로는 우리 지역우주에 약 1억 명의 화해하는 위원들이 있다.

37:8.7 (414.2) 기술 충고자들, 영역의 법적 마음이며, 그 중에서 우리에게 할당된 숫자는 약 5억 명이다. 이 존재들은 모든 공간의 살아있는 그리고 순환하는 체험적 법률 도서관들이다.

37:8.8 (414.3) 천상의 기록자들, 상승한 세라핌천사이며, 이 중에서 우리는 네바돈에 75명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선임 또는 감독하는 기록자들이다. 훈련을 받고 있는 이 계층의 앞서 나아가는 학생들은 거의 40억 명에 이른다.

37:8.9 (414.4) 네바돈에 있는 700억 명의 모론시아 동행자들은 시간의 순례자들이 있는 과도기 행성들에 관한 이야기에서 설명된다.

37:8.10 (414.5) 각각의 우주는 그 자체의 토착 천사 무리단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창조의 외부에서 지원된 보다 높은 영들의 협조가 매우 도움을 주는 경우들이 있다. 초(超)천사는 어떤 드물고 독특한 임무들을 수행한다; 유란시아 세라핌천사의 현재 우두머리는 파라다이스의 1차 초(超)천사이다. 반영하는 2품천사는 초우주 성원들이 기능하는 곳은 어디든지 발견되며, 매우 많은 3품천사들이 지고(至高)보좌관들로서 임시로 봉사한다.

제 9 장. 지역우주의 영구 시민

37:9.1 (414.6) 초우주와 중앙우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우주 역시 자체 영구 시민신분 계층들을 갖고 있다. 이것들은 다음과 같은 창조된 유형들을 포함한다:

37:9.2 (414.7) 1. 수사시아.

37:9.3 (414.8) 2. 유니비타시아.

37:9.4 (414.9) 3. 물질아들.

37:9.5 (414.10) 4. 중도(中途) 창조체.

37:9.6 (414.11) 지역 창조의 이들 토착들은, 영-융합 상승자들 그리고 스피롱가(다르게 분류되는 존재들)과 함께, 상대적으로 영구 시민신분을 구성한다. 이 계층의 존재들은 대체로 상승하지도 않고 하강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모두 체험적 창조체이지만, 그들의 확대되는 체험은 기원된 그들의 차원에서 우주에 계속 이용된다. 반면에 이것이 아담의 아들과 중도(中途) 창조체들에게 전적으로 참 말은 아니지만, 이들 계층들에게 상대적으로 참말이다.

37:9.7 (414.12) 수사시아. 이들 기묘한 존재들은 이 지역우주의 본부인 구원자별에서 영구시민으로서 거주하고 기능한다. 그들은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의 훌륭한 자손들이며 네바돈 완전의 무리단의 영-융합 필사자인 지역우주의 상승하는 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37:9.8 (414.13) 유니비타시아. 고안건축 구체들의 100개 별자리
본부 군(群)의 각각은 유니비타시아라고 알려진 존재들의
거주 계층의 계속적인 보살핌을 받는다.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으로부터 나온 이 자녀들은 별자리 본부 세계들의
영구적인 주민의 일원이다. 그들은 체계 본부에 거주하는
물질아들들의 반(半) 물질적 지위와 영-융합 필사자들
그리고 구원자별의 수사시아의 보다 더 명확히 영적 수준
사이에서 중간 점의 생명 수준에 존재하는 재생산불가능
존재들이다; 유니비타시아는 모론시아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은 중앙 창조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순례자 영들에게
하보나 원주민들이 기여하는 것을 별자리 공간들을
지나가는 동안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위해 성취한다.

37:9.9 (415.1) 하느님의 물질아들. 무한한 영의 우주 대리자인
우주 어머니 영과 창조자 아들 사이의 창조적인 연락이 그
순환주기를 완성하였을 때, 병합된 본성의 자손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을 때, 창조자 아들은 그의 존재의 마지막
개념을 이원적(二元的) 형태로 개인성구현하며, 그리하여
그 자신이 가진 그리고 기원적인 이원적(二元) 기원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우주
아들관계의 물질적 계층의 아름답고 뛰어난 아들과

딸들을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게서 창조한다. 이것이 네바돈의 각 지역체계의 기원적 아담과 이브의 기원이다. 그들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는, 아들관계의 재생산 가능한 계층이다. 그들의 자손은, 일부가 행성 아담으로 임명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체계 수도의 영구시민들로서 기능한다.

37:9.10 (415.2) 행성 임무에서 물질아들과 딸은 그 세계의 아담의-종족을 세우도록 임명되는데 그 종족은 결국에는 그 구체의 필사자 거주자들과 혼합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행성 아담들은 하강하고 상승하는 아들들이지만, 우리는 대개 그들을 상승하는 존재로 분류한다.

37:9.11 (415.3) 중도(中途) 창조체들. 거주민이 사는 대부분의 세계들의 초기 시대에, 초인간적이지만 물질적 어떤 존재들이 배정되는데, 그들은 대개 행성 아담들이 도착할 때 물러난다. 진화적 종족들의 개선시키기 위한 그러한 존재들의 활동행위와 물질아들들의 노력은 분류되기 어려운 한정된 숫자의 창조체들이 출현되는 결과를 종종 가져온다. 독특한 이 존재들은 물질아들들과 진화적 창조체들의 중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중도(中途) 창조체들이라고 불린다. 대비하는 감각에서 본다면, 이 중도자(中途者)들은 진화 세계의 영구시민이다. 행성영주가 도착하는 초기 시대부터 빛과 생명에 행성이 정착하는 먼 훗날의 시대까지, 그들은 구체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유일한 지능 존재 집단이다. 유란시아에서 중도(中途) 사명활동자들은 실체 안에서 실재로 행성의 실재적 보호관리자들이다; 실천적으로 말할 때, 그들은 유란시아의 시민들이다. 필사자들이 진화 세계의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주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너희 모두는 너무나 짧게 산다; 너희는 너희 태어난 행성에서 그토록 짧은 기간 동안 머문다. 너희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진화적 진보의 다른 세계들로 옮겨진다. 행성들에서 천상의 사명활동자들로 봉사하는 초인간적 존재들조차도 과도기 배정을 받은 것이다; 그들 중에서 주어진 구체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무튼, 중도(中途) 창조체들은 항상 변화하는 천상의 보살핌과 계속적으로 바뀌는 필사자 거주민들 가운데서 행성 관리-행정의 연속성을 제공한다. 끊임없는 이러한 변화와 변천 전체를 통하여, 중도(中途) 창조체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부단히 수행하면서 행성에 남는다.

마찬가지로, 지역우주들과 초우주들의 관리-행정 조직의 모든 분야들은 다소간의 영구 주민들, 시민권 지위의 거주민들을 소유하고 있다. 유란시아에 중도자(中途者)들이 있는 것처럼, 너희의 체계 수도인 예루셈에는 물질아들과 딸들이 있다; 너희 별자리 본부인 에덴시아에는 유니비타시아가 있으며, 한편 구원자별의 시민은 이중적이어서 창조된 수사시아와 진화된 영-융합 필사자들이 있다. 초우주들의 소구역과 대구역의 관리-행정적 세계들에는 영구시민들이 없다. 그러나 유버사 본부 구체들은 아반돈터라고 알려진 놀라운 존재들의 집단에 의해 계속적으로 육성되는데, 그들은 오르본톤의 수도에 거주하는 일곱 반영 영들과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미(未)계시 대리자의 창조체들이다. 유버사에서 거주하는 이 시민들은 현재, 아들-융합 필사자들로 구성된 유버사 무리단의 즉각적인 감독 아래에서 그들의 일상적인 관련사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하보나 역시 토착 존재들이 있으며, 빛과 생명의 중앙 섬은 파라다이스 시민들의 다양한 집단들의 고향이다.

제 10 장. 다른 지역우주 집단

37:10.1 (416.1) 이어지는 글들에서 고려될 세라핌천사 그리고 필사자 계층을 제외하고, 현재는 3백만 개 이상의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이 있고 1천만 개가 예상되는 네바돈 우주와 같은 그러한 거대한 조직을 유지하고 완전을 이루는 데에 관여하는 수많은 다른 존재들이 있다. 다양한 네바돈 생명 형태들은 너무나 많아서 이 글에 목록을 게재할 수도 없지만, 지역우주의 647,591개 고안건축 구체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두 가지 특별한 계층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37:10.2 (416.2) 스피롱가들은 빛나는 새벽별과 아버지 멜기세덱의 영 후손이다. 그들은 개인성 소멸에서 제외되지만 진화하거나 상승하는 존재들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진화적 상승 체제에 기능적으로 관여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지역우주의 영 조력자들인데, 네바돈의 일상적인 영 임무들을 실행한다.

37:10.3 (416.3) 스포르나기아. 지역우주의 고안건축의 본부 세계들은 실제적인 세계들—물리적 창조계들—이다. 거기에는 그것들의 물리적 보존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으며, 여기에서 우리는 스포르나기아로 불리는 물리적

창조체들의 집단의 협조를 받는다. 그들은 예루셈으로부터 구원자별에 이르기까지 이 본부 세계들의 물질적인 위상들을 돌보고 가꾸는 일에 헌신한다. 스포르나기아들은 영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며; 실존하는 동물 계층이지만, 만일 너희가 그들을 볼 수 있다면, 너희는 그들이 완전한 동물들로 보인다고 동의할 것이다.

37:10.4 (416.4) 다양한 우대(優待)거류민단이 구원자별과 다른 곳에 거주한다. 우리는 특별히 별자리들에 있는 천상의 거장의 사명활동으로부터 유익을 얻고 복귀 지도자들의 활동으로부터 유익을 얻는데, 그들은 주로 지역우주의 수도에서 활동한다.

37:10.5 (416.5) 우주 봉사에는 영화롭게 된 중도(中途) 창조체들을 포함하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무리단이 항상 배속되어 있다. 이 상승자들은, 구원자별을 달성한 후에, 우주 관련사들의 처리행위에서 거의 끝없는 다양한 활동들에 활용된다. 각각의 성취 차원으로부터, 전진하는 이 필사자들은 뒤와 밑으로 손을 내 뻗어, 위를 향한 상승으로 자신들을 따라오는 자기 동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구원자별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그러한

필사자들은 요청을 받으면 실천적으로 조력자, 학생, 관찰자, 그리고 선생들로서 모든 천상의 개인성들의 무리단에 배정된다.

37:10.6 (416.6) 지역우주의 관리-행정과 관련된 지능적 생명의 다른 유형들이 아직도 더 있지만, 이번이야기에서의 계획은 이들 창조계층에 대해 더 이상의 계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생존되는 실존의 실체와 장대함을 필사자 마음이 파악하기에 알맞도록, 이 우주의 생명들과 관리-행정에 충분한 분량이 여기에 설명되고 있다. 너희의 전진하는 생애들 속에서 더 많은 체험이 이 흥미롭고 매력 있는 존재들을 점점 더 계시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수많은 훈련 학교들로서 이 창조체들을 관리-운영하는 공간의 우주들에 쇄도하는 가지각색의 개인성들의 본성과 업무에 대한 간단한 윤곽만을 제시할 뿐이다, 학교들 그곳에서 시간의 순례자들은 자신들이 기원된 우주의 경계선으로부터 초우주의 보다 높은 교육 체제를 향하여 사랑 가득함으로 파송되어, 그곳으로부터 계속 하보나의 영-훈련 세계로, 결국에는 파라다이스에 그리고 최종자의 높은 운명—시간과 공간의 우주를 향한 아직 계시되지

않는 임무에 영원히 지정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삶에서 삶으로 그리고 세계에서 세계로 나아간다.

37:10.7 (417.1) [네바돈의 찬란한 저녁별, 창조된 무리단의 1,146번에 의해 구술되었음]

제 38 편 지역우주의 사명활동 영

38:0.1 (418.1) 무한한 영의 개인성들 중에는 세 가지 다른 계층들이 있다. 성급한 사도가 예수에 관하여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느님 오른 편에 있으며, 천사들과 권한자들과 힘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기록하였을 때 그는 이것을 납득하고 있었다. 천사들은 시간의 사명활동 영이다; 권한자들은 공간의 메신저 무리이다; 힘들은 무한한 영의 높은 개인성들이다.

38:0.2 (418.2) 중앙우주의 초(超)천사들과 초우주의 2품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세라핌천사들은 연관된 케루빔들과 사노빔들과 함께, 지역우주의 천사 무리단을 구성한다.

38:0.3 (418.3) 세라핌천사들은 설계상으로는 모두가 아주 균일하다. 우주에서 우주에 이르기까지, 일곱 초우주에

두루, 그들은 최소한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들은 개인성 존재들의 모든 영 유형들에서 가장 표준과 가깝다. 그들의 다양한 계층들은 지역 창조계의 숙련된 그리고 평상적인 사명활동자 무리단을 구성한다.

제 1 장. 세라핌천사의 기원

38:1.1 (418.4) 세라핌천사들은 우주어머니 영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네바돈의 초기 시대에서 “원형틀 천사들”과 어떤 천사의 전형(典型)들이 창조된 이래 단일 형태화로—일시에 41,472—계속 구체적으로 투사되어 왔다. 창조자 아들과 무한한 영의 우주 대표자는 많은 숫자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우주 개인성들의 창조에서 협력한다. 이러한 연합된 수고가 완료된 후에, 아들은 물질아들들, 유성(有性) 창조체들의 첫 번째 창조에 들어가고 반면, 우주 어머니 영은 영 번식에 대한 그녀의 최초의 단독 노력에 들어간다. 그리하여 지역우주의 세라핌천사 무리의 창조가 시작된다.

38:1.2 (418.5) 이 천사 계층들은 필사자 의지 창조체들의 진화를 위한 계획이 구상될 때 구체적으로 투사된다. 세라핌천사들의 창조는 우주 어머니 영에게 상대적인

개인성이 달성된 때부터 시작되는데, 이후의 주(主) 아들의 조화-협동자로서가 아니고, 초기 창조자 아들의 창조적 조력자로서이다. 이 사건 전에 네바돈에서 근무하던 세라핌천사들은 이웃 우주로부터 임시로 빌려왔다.

38:1.3 (418.6) 세라핌천사들은 아직도 주기적으로 창조되고 있다; 네바돈 우주는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우주 어머니 영은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완전해지고 있는 우주 안에서 창조 활동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

제 2 장. 천사의 본성

38:2.1 (419.1) 천사들은 물질적인 몸체를 갖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리고 뚜렷이 구별되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영 본성과 기원의 존재이다. 필사자들에게 보일 수 없지만, 그들은 육신으로 있는 너희 그대로를 변환자 또는 전환자 없이 감지하고 있다; 필사자 삶의 양상을 지적으로 납득하고, 사람의 비(非)감각적 감성과 정서를 모두 공유하고 있다. 그들은 음악과 예술 그리고 실제 유머에서 너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매우 즐긴다. 그들은 너희의 도덕적 투쟁과 영적인 어려움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들은 인간

존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들을 납득하고 사랑하려는 너희의 노력에서는 오직 좋은 것만 귀결될 수 있다.

38:2.2 (419.2) 세라핌천사들이 매우 애정이 깊고 동정심이 많은 존재들이기는 하지만, 성(性)-감정을 지닌 창조체들은 아니다. 그들은 너희가 맨션세계, 너희가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도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곳에서 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로이다. 이는 “맨션세계를 달성할 만하다고 여겨질 모든 자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기 때문이며”; “저희가 더 이상 죽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有性) 창조체들을 다루면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더욱 직접으로 내려오는 저들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면에 영의 자녀들을 하느님의 딸들로 언급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습이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유성(有性) 행성들에서 대개 여성 명사로 표현된다.

38:2.3 (419.3) 세라핌천사들은 영적 그리고 사실적 차원 둘 모두에서 기능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들의 봉사사명에 개방되지 않은 모론시아 활동 또는 영 활동의 위상은 거의 없다. 개인성 지위로 볼 때 천사들은 인간 존재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있지 않으나, 일정한 기능적 행위에 있어서 세라핌천사는 그들을 크게 초월한다. 그들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많은 힘을 소유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너희는 “너희 머리털도 모두 수를 세었다.”라는 말을 들어 왔는데, 그것은 정말로 사실이다, 그러나 세라핌천사가 숫자를 세고 그리고 매번 그 정확한 숫자를 세려고 그녀의 시간을 쓰지는 않는다. 천사들은 그러한 것들을 아는 선천적이고 자동적인(너희가 감지하는 한도 내에서는 자동적이다) 힘들을 소유하고 있다; 너희는 세라핌천사를 수학 천재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필사자들에게 엄청난 과제가 될 수 있는 많은 의무들이 세라핌천사에 의해 매우 쉽게 수행되곤 한다.

^{38:2.4 (419.4)} 천사들은 영적 지위에서 너희보다 우월하지만, 그들은 너희의 심판자도 아니고 고발자도 아니다. 너희가 무슨 잘못을 범하든지, “천사들은 힘과 능력에서 매우 더 크지만, 너희를 고발하지 않는다.” 천사들은 인류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개별 필사자들 또한 자기들의 동료 창조체들을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38:2.5 (419.5)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그들을 찬미해서는 안 된다;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위대한 세라핌천사인 로알라시아는 너희 예언자가 “천사의 발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모두 하느님을 경배하도록 명받은, 당신과 당신 종족들과 함께 하는 동료 일꾼입니다.”

38:2.6 (419.6) 본성과 개인성 자질에서, 세라핌천사들은 창조체 실존의 눈금에서 필사 종족보다 약간 앞서 있다. 너희가 육신으로부터 구원될 때 너희는 정말로 그들과 매우 흡사하게 된다. 맨션세계들에서 너희는 세라핌천사들을 올바르게 알기 시작할 것이며, 별자리 구체에서는 그들과 즐기는 반면, 구원자별에서는 그들이 안식과 경배의 자기들의 자리를 너희와 공유할 것이다. 모론시아와 그 이후 영 상승에 두루, 세라핌천사들과 갖는 너희의 형제우애관계는 이상적이 될 것이다; 너희의 동행자신분은 훌륭하게 될 것이다.

제 3 장. 미(未)계시 천사

38:3.1 (420.1) 그들이 어떤 면으로도 파라다이스 상승의 진화 계획에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사자들에게는 계시되지 않은, 수많은 영 존재 계층들이 지역우주 영역에 두루 기능하고 있다. 이 글에서 “천사”라는 말은 필사자 생존 계획들의 작동과 매우 크게 관련되어 있는 우주 어머니 영의 세라핌천사 그리고 연관되는 자손들을 지칭하는 것에 고의적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지역우주 안에는 진화적 필사자들의 파라다이스 상승에 속하는 그 우주 활동들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도 참여하지 않는, 계시되지 않은 천사들인, 여섯 개의 관련된 다른 계층의 존재들이 봉사한다. 이 여섯 집단의 천사 동료들은 세라핌천사로 불린 적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명활동 영들로 언급되지도 않는다. 이 개인성들은, 영적 상승과 완전 달성에 대한 사람의 진보 생애에 어떤 면으로도 관련되지 않는 관련사들, 네바돈의 행정-관리적 관련사들 그리고 다른 관련사들에 전적으로 종사하고 있다.

제 4 장. 세라핌천사의 세계

38:4.1 (420.2) 구원자별 순환회로에 있는 일곱 1차 구체들의 아홉 번째 집단은 세라핌천사들의 세계들이다. 이들 세계

각각에는 여섯 개의 종속 위성들이 있으며 그곳에는 세라핌천사 훈련의 모든 위상에 헌신되는 특별 학교들이 있다. 세라핌천사들은 구원자별 구체의 이 집단을 구성하는 49개 세계들 전체를 왕래할 수 있지만 반면에, 그들은 일곱 개 중에서 오직 첫 번째 군(群)을 배타적으로 차지한다. 나머지 여섯 군(群)들은 유란시아에 계시되지 않은 천사 연관-동료들 중에서 여섯 계층들에 의해 차지되어 있다; 그러한 집단 각각은 이들 여섯 1차 세계들의 하나에 본부를 유지하고 여섯 개의 소속 위성들에서 특별 활동들을 수행한다. 각각의 천사 계층은 이러한 다양한 일곱 집단들의 세계 전체를 자유롭게 왕래한다.

38:4.2 (420.3) 이들 본부 세계들은 네바돈의 장엄한 영역들에 속해 있다; 세라핌천사 소유지들의 특징은 아름다움과 광대함이다. 이곳에서 각각의 세라핌천사는 실제적인 집을 갖고 있으며, "집"이라는 말은 두 세라핌천사들이 거주하는 곳을 의미한다; 그들은 쌍을 이루어 산다.

38:4.3 (420.4) 물질아들과 필사 종족과 같은 남성과 여성은 아니지만, 세라핌천사들은 음성(陰性)과 양성(陽性)이다.

대부분의 할당된 과제에 있어서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두 천사들이 있어야 한다. 그들이 회로연결이 안되었을 때는, 그들은 홀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이 고정되어 있을 때도, 보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개 자신들의 기원적 보완자를 지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러한 관계적-연합은 1차적으로 기능에 따라서 요구된다; 그들은 매우 개인적이고 정말로 애정이 깊기는 하지만 성(性) 감정에 따른 특성은 없다.

38:4.4 (420.5) 지정된 집들 이외에, 세라핌천사들은 또한 소대(小隊), 중대(中隊), 대대(大隊), 그리고 단위(單位) 본부를 갖고 있다. 그들은 1,000년마다 재결합하기 위해 모여서 그들이 창조된 시기에 따라서 모두가 나타난다. 만일 세라핌천사가 임무를 떠날 수 없는 의무들에 묶여 있다면, 그녀는 자신의 보완자와 교대로, 다른 출생일을 갖는 세라핌천사에 의해 면제되는 존재가 참석한다. 각각의 세라핌천사 동반자는 적어도 두 번에 한번은 재결합에 참석한다.

제 5 장. 세라핌천사의 훈련

38:5.1 (420.6) 세라핌천사들은 구원자별에서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세계 학교들에서, 임관되지 않은 관찰자들로써 첫 1,000년을 보낸다. 그 다음 천 년은 구원자별 순환회로의 세라핌천사 세계들에서 지낸다. 그들의 중앙 훈련 학교는 현재 첫 번째 100,000명의 네바돈 세라핌천사들에 의해 통솔되고 있으며, 그들의 우두머리는 이 지역우주의 기원적 또는 첫-탄생 천사이다. 네바돈 세라핌천사들 중에서 처음으로 창조된 집단은 아발론에서 온 1,000명의 세라핌천사 무리단에 의해 훈련되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천사들이 자기 자신의 선배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아 왔다. 멜기세덱들 역시 모든 지역우주 천사들—세라핌천사, 케루빔, 그리고 사노빔—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서 큰 역할을 한다.

38:5.2 (421.1) 구원자별의 세라핌천사 세계들에서 이 훈련 기간이 완료되면, 세라핌천사들은 기존의 천사 조직의 집단들과 단위들에 동원되고 그리고 별자리 중 하나에 배정된다. 그들은 아직 사명활동 영들로 임명된 것은 아니지만, 천사 훈련의 임관(任官)이전 위상에 이미 잘 접어들고 있다.

38:5.3 (421.2) 세라핌천사들은 진화하는 세계 중 가장 낮은 곳에서 관찰자로서 봉사함으로써, 사명활동 영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체험이 있는 후에 그들은 어떤 특정 지역체계에서의 봉사를 위해 더욱 확실하게 준비하고 자신들의 향상된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 배정된 별자리 본부의 연관 세계들로 돌아온다. 이러한 일반적인 교육이 있는 후에 그들은 지역체계들 중의 어떤 하나에 대한 봉사를 하도록 진급된다. 어떤 네바돈 체계의 수도와 연관된 고안건축 세계들에서, 우리 세라핌천사들은 자신들의 훈련을 완결하고 시간의 사명활동 영들로서 취역된다.

38:5.4 (421.3) 세라핌천사들은 일단 취역되고 나면, 네바돈 전체, 심지어는 오르본톤에 이르기까지 임무를 부여받는다. 우주에서의 그들의 일은 경계와 한계가 없다; 그들은 세계들의 물질적 창조체들과 가깝게 연관되고, 영적 개인성들의 비교적 낮은 계층들에 언제까지나 봉사하고 있으며, 영 세계의 이들 존재와 물질 영역의 필사자들 사이에 접촉을 이루고 있다.

제 6 장. 세라핌천사의 조직

38:6.1 (421.4) 세라핌천사의 본부에서 두 번째 천 년을 보낸 후에, 세라핌천사들은 우두머리들 밑에 조직되어 12명의 집단들(12쌍, 24명의 세라핌천사), 그리고 그 집단들 12개가 중대(144쌍, 288명의 세라핌천사)를 이루는데, 그것은 한 명의 지도자에 의해 움직인다. 12개 중대는 한 명의 명령자 아래에서 한 개의 대대(1,728쌍 또는 3,456명의 세라핌천사)를 구성하며, 한 지도자 아래의 12개 대대들이 하나의 세라핌천사 단위 연대(20,736쌍 또는 41,472명의 개별존재들)와 같다, 한편 12개 단위 연대들은, 한 감독자의 명령에 따르며, 248,832쌍 또는 497,664명의 개별존재에 달하는 한 군단(軍團)을 구성한다.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날 밤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요청하면 열 두 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즉시 보내실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 천사 집단들을 언급한 것이었다.

38:6.2 (421.5) 12 군단의 천사들은 2,985,984쌍 또는 5,971,968명의 개별존재들에 이르는 한 무리를 구성하며, 그러한 열 두 무리들 (35,831,808쌍 또는 71,663,616명의 개별존재들)이 가장 큰 세라핌천사 운영 조직, 하나의 천사 군대(軍隊)를 이룬다. 하나의 세라핌천사 무리는 한 명의

천사장에 의해서 또는 조화-협동-지위의 다른 어떤 개인성에 의해서 명령을 받는 반면, 천사 군대(軍隊)들은 찬란한 저녁별에 의해서 또는 가브리엘의 다른 직속 부관(副官)에 의해서 지도된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하늘의 군대(軍隊)의 최극 명령자”, “무리들의 주님 하느님”인 네바돈의 주권자의 우두머리 집행자다.

38:6.3 (421.6) 구원자별에 개인성구현으로서의 무한한 영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에서 봉사하지만,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증여된 이후로, 세라핌천사들과 다른 모든 지역우주 계층들은 주(主)아들의 주권에 따르도록 되었다.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에도, “그리고 모든 천사들로 하여금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선포된 초우주 방송이 네바돈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계급의 천사들은 그의 주권에 따르며; 그들은 “그의 막강한 천사들”이라고 명명되어 온 그 집단의 일부분이다.

제 7 장. 케루빔과 사노빔

38:7.1 (422.1) 모든 본질적인 자질에서 케루빔과 사노빔은 세라핌천사와 비슷하다. 그들은 동일한 기원을 갖지만 운명이 항상 같지는 않다. 그들은 놀랄 만큼 지능적이고,

신기할 정도로 유능하며, 감동적일 정도로 애정이 깊고, 거의 인간이다. 그들은 천사들 중에서 가장 낮은 계층인데, 따라서 진화하는 세계들에서 인간 존재의 보다 진보적인 유형들에게 더욱 가깝다.

38:7.2 (422.2) 케루빔과 사노빔은 선천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전자(前者)는 에너지 양성 개인성이고; 후자(後者)는 에너지 음성 개인성이다. 오른쪽 방향의 편향자(偏向者) 또는 양성으로 충전된 천사가 케루빔—선배 또는 통제하는 개인성—이다. 왼쪽 방향의 편향자(偏向者) 또는 음성으로 충전된 천사가 사노빔—보완적 존재—이다. 각각의 천사 유형은 단독 기능에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은 대개 쌍으로 봉사한다. 그들의 세라핌천사 지도자들과 상관없이 봉사할 때, 그들은 상호 접촉에 더 많이 의존하며 항상 함께 기능한다.

38:7.3 (422.3) 케루빔과 사노빔은 세라핌천사 사명활동자들의 성실하고도 유능한 도움자들이며, 세라핌천사의 일곱 계층 모두에게는 이러한 종속 보좌관들이 제공되어 있다. 케루빔과 사노빔은 이러한 역량에서 긴 세월 동안

봉사하지만, 그들은 지역우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임무에서는 세라핌천사와 동행하지 않는다.

38:7.4 (422.4) 케루빔과 사노빔은 체계들의 개별 세계들에
존재하는 일상적인 영 근로자들이다. 비(非)개인적 임무와
그리고 긴급사태에서, 그들은 세라핌천사 쌍을 대신하여
봉사할 수 있지만, 그들은 인간 존재에 대해 관여하는
천사들로서는, 임시적으로도 기능하는 일이 결코 없다;
그것은 세라핌천사의 독점적 특권이다.

38:7.5 (422.5) 행성에 배정되었을 때, 케루빔은 행성 관습들과
언어들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는 지역 훈련 과정에
들어간다. 시간의 사명활동 영들은 모두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데, 그들이 기원된 지역우주의 언어와 그들의
탄생 초우주의 언어가 그것들이다. 그들은 영역의
학교들에서 공부함으로써 추가적인 말들을 습득한다.
케루빔과 사노빔은, 세라핌천사와 영 존재들의 다른 모든
계층들과 마찬가지로, 자아-향상에 대한 노력에 계속하여
참여한다. 힘을 통제하고 에너지를 지도하는 종속 존재들
경우에만 진보가 불가능하다; 모든 창조체들은 새로운

성취를 추구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개인성 의지 작용을 소유한다.

38:7.6 (422.6) 케루빔과 사노빔은 본성적으로 실존의 모론시아 차원에 매우 가까우며, 그들은 물리적, 모론시아적, 그리고 영적 권역의 경계지역 일에서 가장 효과적임이 증명된다.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이 자녀들은, 하보나 봉사원들과 화해자 위원들 경우와 아주 비슷하게 “네 번째 창조체”가 특징이 되어있다. 매번 네 번째 케루빔과 매번 네 번째 사노빔은 준(?)물질적, 실존의 모론시아 차원과 매우 명백하게 흡사하다.

38:7.7 (422.7) 이들 네 번째의 천사 창조체들은 세라핌천사의 우주 그리고 행성 활동들의 더욱 실질적 위상에서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러한 모론시아 케루빔은 또한 모론시아 훈련 세계들에서 많은 필요불가결한 경계지역 과업들을 수행하며 많은 숫자로 모론시아 동행자들의 봉사에 배정된다. 모론시아 구체들에 대한 그들의 관계는 중도(中途) 창조체들의 진화 행성에 대한 관계와 비슷하다.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 이 모론시아 케루빔들은 종종 중도(中途) 창조체들과 연락하여 일하곤

한다. 케루빔들과 중도(中途) 창조체들은 뚜렷하게 구분된 존재 계층들이다; 그들은 서로 다르게 기원되었지만, 본성과 기능 면에서는 매우 유사하다.

제 8 장. 케루빔과 사노빔의 진화

38:8.1 (423.1) 케루빔과 사노빔을 지위 증진으로 인도하는, 향상하는 봉사의 수많은 큰길들이 열려 있으며 그것은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포옹에 의해 더욱 현저히 증강될 수 있다. 진화적인 잠재를 고려할 때 케루빔과 사노빔에는 크게 세 가지 부류들이 있다:

38:8.2 (423.2) 1. 상승 후보자들. 이 존재들은 본성적으로 세라핌천사의 지위가 될 후보자들이다. 이 계층의 케루빔과 사노빔은 선천적 자질에 있어서 세라핌천사와 동등하지는 않더라도 뛰어난 존재들이지만; 적용과 체험 면에 있어서 충분한 세라핌천사 지위를 달성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능하다.

38:8.3 (423.3) 2. 중간-위상 케루빔. 모든 케루빔들과 사노빔들이 상승 잠재에 있어서 동일하지는 않으며, 이들은 천사의 창조들에서 선천적으로 제한된 존재들이다. 좀더 재능 있는 개별존재들이 한정된 세라핌천사의 봉사를 성취할

수도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케루빔들과 사노빔들로 남을 것이다.

38:8.4 (423.4) 3. 모론시아 케루빔. 천사 계층 중에서 이 “네 번째 창조체들”은 항상 자신들의 준(?)물질적 특징을 지닌다. 최극존재의 완성된 사실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중간-위상 형제들 대부분과 함께 케루빔들과 사노빔들로 계속 지낼 것이다.

38:8.5 (423.5) 두 번째와 세 번째 집단들이 성장 잠재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상승 후보자들은 우주 세라핌천사 봉사의 위치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 케루빔 중에서 더 많은 체험을 가진 많은 존재들은 세라핌천사 운명의 수호자들에게 배속되고 그리하여 그들의 세라핌천사 선배들이 남겨두고 떠날 때, 맨션세계 교사들의 지위로 승진할 수 있는 직통선에 놓여진다. 운명의 수호자들은 그들의 필사자 피보호자들이 모론시아 삶을 달성하면, 케루빔과 사노빔을 조력자로서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유형의 진화 세라핌천사들이 구원자별과 파라다이스를 향해 떠나도록 허락을 받으면, 그들은 그들이 네바돈 구역 밖으로 나갈 때, 이전의

종속자들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남겨지게 된 케루빔과 사노빔은 대개 우주 어머니 영에게 포옹되며, 그리하여 세라핌천사 지위 달성에서 맨션세계 교사의 그것과 동등한 차원을 성취한다.

38:8.6 (423.6) 한번-포옹된 케루빔들과 사노빔들이, 맨션세계 교사들로서,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모론시아 구체들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였을 때, 그리고 구원자별에 있는 그들의 무리단이 초과 모집되었을 때, 빛나는 새벽별은 이들 시간 창조체의 신실한 일꾼들을 자기 앞으로 출두하도록 호출한다. 개인성 변환에 대한 맹세가 실시되며; 그때로부터 진급된 이 선임 케루빔들과 사노빔들은 7,0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우주 어머니 영에게 다시 포옹된다. 이렇게 두 번째로 포옹된 때로부터 그들은 충만한-성장의 세라핌천사로 창발한다. 그때부터 세라핌천사의 충만하고도 완성된 생애가, 그것의 모든 파라다이스 가능성들과 함께, 다시 태어난 그러한 케루빔과 사노빔에게 열린다. 그러한 천사들은 어떤 필사 존재에게 운명의 수호자로 배정될 수도 있으며, 만일 그 필사자 피보호자가 생존을 달성하면, 그들은 천사별로 그리고 세라핌천사 달성의 일곱 번째

순환계들, 심지어는 파라다이스와 최종의 무리단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제 9 장. 중도(中途) 창조체들

38:9.1 (424.1) 중도(中途) 창조체들은 삼중으로 분류된다:
그들은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들로 분류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은 사실적으로 영구 시민신분의 조직들로
분류되는 반면, 기능적으로는 시간의 사명활동 영들로
알려지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공간의 개별 세계들에서
필사자 사람을 섬기는 일에서 천사 무리와 긴밀하고도
효력적인 관계적-연합을 하기 때문이다.

38:9.2 (424.2) 이를 독특한 창조체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
대부분에서 출현하며 유란시아와 같은 십진법 소수, 즉
생명-실험 행성들에서는 항상 발견된다.
중도자(中途者)들은—1차와 2차—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다음 기법에 의해 나타난다:

38:9.3 (424.3) 1. 1차 중도자(中途者)들은, 보다 더 영적인
집단인데, 행성영주들의 변경된 상승-필사자
참모들로부터 균일하게 출현되는 존재들로 이루어진 어느
정도 표준화된 계층이다. 1차 중도(中途) 창조체들의

숫자는 항상 5만 명이며, 그들의 사명활동을 누리는 어떤 행성도 더 큰 집단을 가질 수 없다.

38:9.4 (424.4) 2. 2차 중도자(中途者)들은, 이 창조체들 중에서 보다 더 물질적인 집단인데, 평균적으로 5만 명에 이르지만, 세계들마다 숫자가 크게 다르다. 그들은 행성의 생물학적 향상자(向上者)인 아담들과 이브들로부터 또는 그들의 직접적인 자손으로부터 다양하게 출현한다. 공간의 진화 세계들에서 이 2차 중도(中途) 창조체들의 생산에 관여된 서로 다른 기법들은 적어도 24가지에 이른다. 유란시아에서 이 집단이 기원된 방법은 특이하고도 비범한 것이었다.

38:9.5 (424.5) 이들 집단 중 어떤 것도 진화에서의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둘 모두 우주 고안건축가들의 예정된 계획 속에 있는 본질적 모습이며, 적절한 시기에 진화하는 세계에서의 그들의 출현은 감독하는 생명운반자들의 기원적 설계와 개발계획에 따른 것이다.

38:9.6 (424.6) 1차 중도자들은 천사의 기법(技法)에 의해 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힘을 얻으며 지적 지위에서 한결같다. 일곱 보조 마음-영들은 그들과 접촉하지 않는다;

오직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인, 경배의 영과 지혜의 영만이
2차 집단에게 사명활동 할 수 있다.

38:9.7 (424.7) 2차 중도자들은 아담의-기법에 의해 물리적으로
에너지를 받고, 세라핌천사들에 의해 영적으로
순환회로에 들며, 모론시아 과도기 유형의 마음을
지적으로 자질로서 부여받는다. 그들은 네 가지 물리적
유형들로 구분되고, 영적으로는 일곱 계층으로 구분되며,
마지막 두 가지 보조 영들과 모론시아 마음의 공동
사명활동에 대한 지적 반응에서의 열두 차원이 있다. 이들
다양성이 그들 활동의 그리고 행성에서의 배정의 차이를
결정한다.

38:9.8 (424.8) 1차 중도자들은 필사자 보다는 천사와 더
흡사하다; 2차 계층들은 필사 존재와 훨씬 더 흡사하다. 그
각각은 그들의 복합적 행성 임무들의 실행에 있어서 다른
상대에게 매우 귀중한 도움을 제공한다. 1차
사명활동자들은 모론시아와 영-에너지 통제자들과 마음
순환회로자들. 둘 모두와 연락의 협동을 성취할 수 있다.
2차 집단은 오직 물리통제자들과 물질-회로 조종자들과만
작업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중도자 계층이

다른 상대와의 접촉으로 완전한 동조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어떤 집단도, 그로 인하여, 물질적 세계들의 총체적 물리적 힘으로부터 우주 에너지들의 과도기 위상들을 거쳐 천상 영역들의 보다 높은 영-실체 기세에 이르기까지 확정되는, 전체 에너지 범위의 실천적 활용을 성취할 수 있다.

38:9.9 (425.1) 물질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공백은 필사자 사람, 2차 중도자, 1차 중도자, 모론시아 케루빔, 중간-위상 케루빔, 그리고 세라핌천사의 연속적 관계적-연합에 의해 완전하게 다리가 놓아진다. 개별 필사자의 개인적인 체험에서 이들 다양한 차원들은 신성한 생각 조절자의 관찰되지 않는 그리고 신비로운 작동에 의해 확실히 어느 정도 통합되고 개인적으로 의미를 갖게 된다.

38:9.10 (425.2) 정상적인 세계들에서는 1차 중도자들이 정보무리단으로서 그리고 행성영주를 대신하는 천상의 예능인들로서 자신들의 봉사를 계속하는 반면, 2차 사명활동자들은 진보적인 행성 문명의 동기를 촉진시키는 아담의-통치체제와의 협동을 계속한다. 유란시아에서 있었던 것처럼, 행성영주의 배신과 물질아들의 실패가

발생된 경우에는, 중도(中途) 창조체들은 체계 주권자의 피보호자들이 되며 행성의 직무 대행 보호관리자의 안내 지도에 따라 봉사한다. 그러나 사타니아에서는 오직 3개의 다른 세계에서만, 유란시아의 연합된 중도(中途) 사명활동자들이 하는 것처럼, 통합 지도체제 아래에서 이 존재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기능한다.

38:9.11 (425.3) 1차 그리고 2차 중도자들 모두의 행성에서의 활동은 우주의 수많은 개별 세계들에서 다채롭고 다양하지만, 정상적이고 평균적인 행성들에서의 그들의 활동은 유란시아와 같은 고립된 구체에서 그들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 의무들과는 매우 다르다.

38:9.12 (425.4) 1차 중도자들은 행성의 역사가들이고, 그들은 행성영주가 도착한 때로부터 빛과 생명이 정착되는 시기까지 야외극을 꾸미고 행성 역사에 대한 묘사를 계획하는데, 체계 본부 세계들에서 행성들을 전시하기 위해서 이다.

38:9.13 (425.5) 중도자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 긴 기간 동안 머물지만, 그들의 책임에 신실하였다면 그들은 결국에는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창조자 아들의 주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오랜 동안의 봉사에 대해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자신들의 세계에서 물질적 필사자들에 대해 인내심으로 사명활동 하였던 것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조만간에 인정을 받은 모든 중도(中途) 창조체들은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들의 반열(班列)에 들어갈 것이며, 동물로부터 기원된 바로 그 필사자들, 땅의 형제들, 그들이 행성에 오래 머물면서 그토록 선망하면서 보호하였던 그리고 그토록 효과적으로 봉사하였던 그들과 일행을 이루어 파라다이스 상승의 긴 모험에 마땅히 함께 할 것이다.

38:9.14 (425.6) [네바돈의 세라핌천사 무리 우두머리의 요청에 의해 활동하는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39 편 세라핌천사 무리

39:0.1 (426.1)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무한한 영은, 지역우주 본부에서의 개인성구현으로, 균일하게 완전한 세라핌천사들을 산출하게 되어 있지만, 이 세라핌천사 자손들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은 진화하는 체험적 신(神)의 알려지지 않은 간섭의 결과일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세라핌천사들이 교육적인 시험과 훈련하는 단련을 받아들 때 그들이 다음과 같은 일곱 집단들로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분류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39:0.2 (426.2) 1. 최극 세라핌천사.

39:0.3 (426.3) 2. 최상 세라핌천사.

39:0.4 (426.4) 3. 감독자 세라핌천사.

39:0.5 (426.5) 4. 행정-관리자 세라핌천사.

39:0.6 (426.6) 5. 행성 조력자들.

39:0.7 (426.7) 6. 과도기 사명활동자들.

39:0.8 (426.8) 7. 미래의 세라핌천사들.

39:0.9 (426.9) 하나의 세라핌천사가 다른 어떤 집단의 천사보다 열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천사는 처음에는 기원적이고 선천적인 분류 집단에서만 봉사할 수 있다. 이 글을 준비할 당시에 나의 세라핌천사 동료인 마노티아는 최극 세라핌천사였고 한때는 오직 최극 세라핌천사로서만 기능하였다. 적용과

헌신된 봉사 면에서 볼 때, 그녀는 일곱 가지 세라핌천사
임무들 전체를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였는데,
세라핌천사에게 개방된 활동의 거의 모든 큰길에서
일하였으며, 현재는 유란시아에서 세라핌천사 우두머리
연관-동료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39:0.10 (426.10) 인간 존재들은, 보다 높은 차원의 사명활동을
위해 창조된 재능이, 비교적 낮은 봉사 차원에서 기능할 수
있음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음을 때로 발견한다. 사람은 어떤 도움도 없는 아기로
삶을 시작한다; 모든 필사자 달성은 모든 체험적
필요조건들을 내포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라핌천사들에게는 그러한 성인(成人) 이전의 삶—어린
시절—이 없다. 아무튼 그들은 체험적 창조체들이며,
체험에 의해 그리고 추가적인 교육을 통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세라핌천사의 노력 속에서 기능적 기술을
체험적으로 획득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성하고 선천적인
자질을 증강시킬 수 있다.

39:0.11 (426.11) 임명을 받은 후에, 세라핌천사는 자신들의 선천적
집단의 예비자로 배정된다. 행성의 그리고 행정-관리자

지위의 그들은 흔히 기원적으로 분류된 대로 오랜 기간 봉사하지만, 선천적 기능차원이 높을수록 천사 사명활동자들은 우주 업무의 보다 낮은 계층에 배정되려고 더욱 끈질기게 추구한다. 특별히 그들은 행성 조력자의 예비자에 배정되기를 바라며, 만일 성공하게 되면 그들은 어떤 진화 세계의 행성영주의 본부에 부속된 천상의 학교들에 들어간다. 이곳에서 그들은 인류의 언어와 역사 그리고 지방 관습들을 공부하기 시작한다. 세라핌천사들은 인간 존재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을 습득하고 체험을 가져야만 한다. 그들은 특정한 개인성 속성에서 너희와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바닥으로부터, 가능한 가장 낮은 차원의 사명활동으로부터 출발하기를 갈망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체험적 운명의 가능한 가장 높은 차원을 성취하기를 바라기도 한다.

제 1 장. 최극 세라핌천사

39:1.1 (427.1) 이 세라핌천사들은 지역우주 천사들의 계시된 일곱 계층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계층이다. 그들은 일곱 개의 집단으로 기능하는데, 그 각각은 완성의 세라핌천사 무리단의 천사 사명활동자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39:1.2 (427.2)

1. 아들-영 사명활동자들. 최극 세라핌천사 중 첫 번째 집단은 지역우주에서 거주하고 기능하는 높은 아들과 영-기원 존재들에 대한 봉사에 배정된다. 이 집단의 천사 사명활동자들은 또한 우주 아들과 우주 영을 섬기며,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의 연합된 의지의 우주 집행자 우두머리인 빛나는 새벽별의 정보무리단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39:1.3 (427.3)

높은 아들과 영들에게 배정됨으로써, 이 세라핌천사들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신성한 자손인 파라다이스 아보날들의 멀리 퍼지는 봉사들에 자연적으로 연관된다. 파라다이스 아보날들은 높은 조직이며 체험된 계층인 이 세라핌천사를 통해 모든 치안법관 임무 그리고 증여(贈與) 임무에 항상 참여하는데, 그들은 그러한 때에 새로운 시대의 개시와 행성의 한 섭리시대 종료에 관련된 특별한 업무를 조직하고 관리-운영하는 일에 몰두한다. 그러나 그들은 세대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에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판결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39:1.4 (427.4) 증여 수행원. 창조자 아들들을 제외한, 파라다이스 아보날들은 증여 임무를 수행할 때 144명의 증여 수행원을 항상 대동한다. 이 144명의 천사들은 증여 임무와 연관될 다른 모든 아들-영 사명활동자들의 우두머리들이다. 행성 증여에 있어서 육신화된 하느님의 아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천사 무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세라핌천사들 전체는 144명의 증여 수행원에 의해 조직화되고 지도를 받을 것이다. 보다 높은 계층의 천사들, 초(超)천사와 2품천사 역시 참석한 무리의 일부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임무들이 세라핌천사의 그것들과 다를지라도, 이 활동들 전체는 증여 수행원에 의해 조화-협동을 이룰 것이다.

39:1.5 (427.5) 이 증여 수행원은 완성 세라핌천사들이다; 그들은 모두 천사별 순환계들을 지나갔고 완성의 세라핌천사 무리단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의 자녀들의 발전을 위한 하느님의 아들들의 증여들과 연관된 비상사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훈련을 특별히 받아왔다. 그러한 세라핌천사들은 모두 둘째근원이며 중심인 영원한 아들의 개인적 용납과 파라다이스를 성취하였다.

39:1.6 (427.6) 세라핌천사들은 육신화된 아들들의 임무에 대한 배정과 영역들의 필사자들에 대한 운명 수호자로서의 배속을 똑같이 열망한다; 후자는 파라다이스에 이르는 가장 분명한 세라핌천사 신분증인 반면, 증여 수행원은 파라다이스 달성의 완성 세라핌천사의 가장 높은 지역우주 봉사를 성취해 왔다.

39:1.7 (428.1) 2. 법정충고자들. 이들은 화해자들로부터 영역의 가장 높은 재판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판결 계층들에 배속된 세라핌천사 충고자들 그리고 조력자들이다. 가혹한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 그러한 재판소들의 목적이 아니며 오히려 정직한 견해 차이들을 판결하고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영속하는 생존을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 법정충고자들의 임무가 있는데: 필사 창조체들에 대한 모든 고발이 공의(公義)로서 판결을 받고 자비로운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그들은 높은 위원들, 지역우주에서 봉사하는 영-융합 상승 필사자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39:1.8 (428.2) 세라핌천사 법정 충고자들은 필사자들의 옹호자로서 광범위하게 봉사한다. 영역들의 낮은

창조체들에게 부당하게 되는 어떤 처분이 존재한 적이 전혀 없었지만, 신성한 완전을 향하여 상승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불이행에 대한 판결을 공의(公義)가 요구하는 반면, 자비는 그러한 모든 실족이 창조체 본성과 신성한 목적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되기를 요구한다. 이 천사들은 신성한 공의(公義)—개인적인 동기들과 인종적인 경향들 밑에 숨겨진 사실들에 대한 지식에 기초한 공정성—속에 선천적인 자비의 요소를 설명하고 예증하는 존재들이다.

39:1.9 (428.3) 이 계층의 천사들은 행성영주들의 협의회들로부터 지역우주의 가장 높은 재판소들에 이르기까지 봉사하는 반면, 완성의 세라핌천사 무리단들에 속한 그들의 연관-동료들은 심지어 유버사에 있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에서까지, 오르본톤의 보다 높은 영역들에서 기능한다.

39:1.10 (428.4) 3. 우주 방향안내자들. 이들은 그 상승하는 창조체들 전체의 참된 친구들인 동시에 졸업-이후 과정의 조연자들인데, 그 창조체들은 자신들이 기원된 우주 안에서, 오르본톤이라는 광대한 초우주 속에서 그들 앞에

펼쳐지는 영 모험여행의 끝자락 위에 서있으면서
구원자별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며 멈추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수많은 상승자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인간 감정과 비교함으로써만 필사자들에게 납득될 수
있는 느낌을 갖고 있다. 뒤에는 성취의 영역들, 모론시아
달성과 오랫동안의 봉사에 의해 더욱 친하게 된 영역들이
있다; 앞에는 더욱 크고 광대한 우주의 도전적인 신비가
놓여 있다.

39:1.11 (428.5) 우주 방향안내자들의 과업은, 우주 봉사의 달성된
차원으로부터 달성되지 않은 차원으로 상승하는
순례자들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것이며, 최초-단계에 영
존재로 서게 된 실현에서, 그곳이 지역우주 모론시아
상승의 정점이자 끝이 아니고 오히려 파라다이스에 있는
우주 아버지에 이르는 영적 상승의 긴 사다리의 가장
밑바닥이 되는 곳으로, 실현 안에 선천적으로 들어있는
의미들과 가치들의 이해 안에서, 주마등같은 변화무쌍한
조절들을 만드는 것에서 이들 순례자들을 돕는 것이다.

39:1.12 (428.6) 이 세라핌천사들과 연관되어 있는 완성의
세라핌천사 무리단의 일원들인, 천사별 졸업자들

대부분은, 다음 우주 시대의 관계들을 위하여 네바돈의 창조체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관계된 특정의 구원자별 학교들에서 광범위하게 가르치는 일에 종사한다.

39:1.13 (428.7) 4. 교습 조연자들. 이 천사들은 지역우주의 영적인 교육 부대의 훌륭한 보좌관들이다. 교습 조연자들은 멜기세덱들과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로부터 아래로는 상승자 삶의 단계들에 있어서 바로 그들의 뒤에 있는 그들의 동족들에게 조력자로서 배정된 모론시아 필사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선생들에게 비서 역할을 한다. 너희는 예루셈을 둘러싸는 일곱 맨션세계들 중 어떤 하나에서, 가르치는 이들 연관-동료 세라핌천사들을 먼저 보게 될 것이다.

39:1.14 (428.8) 이들 세라핌천사들은 지역우주의 수많은 교육(敎育) 그리고 훈련 기관들의 구역 우두머리들의 연관-동료들이 되며, 그들은 지역체계들의 일곱 훈련 세계들 그리고 별자리들의 70개 교육 구체들의 교수진에 많은 숫자로 배속되어 있다. 이러한 봉사는 아래로 개별적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확장된다. 시간(時間) 세계의 참되고

성별된 선생들까지도 최극 세라핌천사들의 이 조언자들에 의해 도움을 받고 때로는 시중을 받는다.

39:1.15 (429.1) 창조자 아들의 네 번째 창조체 증여는 네바돈의 최극 세라핌천사들 중에서 교습 조언자들과 비슷했었다.

39:1.16 (429.2) 5. 배치 지휘자들. 144명의 최극 세라핌천사들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체가, 창조체가 거주하는 진화 그리고 고안건축 구체에서 봉사하는 천사들에 의해 수시로 선출된다. 이것은 모든 구체에서 가장 높은 천사 협의회이며, 세라핌천사의 봉사와 임무의 자아-방향 결정하는 위상들을 조화-협동한다. 이 천사들은 직무 수행중이거나 경배에 참여한 모든 세라핌천사 단체들을 통솔한다.

39:1.17 (429.3) 6. 기록자들. 이들은 최극 세라핌천사를 위한 공식 기록자들이다. 이 높은 천사들 중 많은 숫자는 충분히 발달된 재능들을 가지고 태어났다; 나머지 천사들은 보다 낮거나 보다 적은 책임을 가진 계층들에 배속되어 있는 동안, 부지런히 애써서 공부하고 또 비슷한 임무들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에 따라 신뢰와 책임의 자신들의 위치에 분별화되어왔다.

39:1.18 (429.4)

7. 소속없는 사명활동자들. 최극 계층의 배속되지 않은 많은 숫자의 최극 세라핌천사들이 고안건축 구체들에서 그리고 거주민이 사는 행성들에서 자아-방향결정 하는 봉사자들로 존재한다. 그러한 사명활동자들은 최극 세라핌천사의 업무를 위한 특수 형태의 요구에 대처한다.

제 2 장. 우수 세라핌천사

39:2.1

(429.5)

상급 세라핌천사들은 자기 이름들을 받아들이는데, 그들이 어떤 감각적인 질(質)에 있어서 다른 계층의 천사들에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역우주의 보다 높은 활동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라핌천사 무리단의 첫 두 집단들 중에서 매우 많은 숫자는 달성 세라핌천사들, 모든 훈련 위상에서 봉사하였고 그들이 초기에 활동하였던 구체들에서 그들 부류에 대한 지도자들로써 영화롭게 된 임무로 되돌아왔던 천사들이다. 아직 미숙한 우주이기 때문에, 네바돈은 이 계층을 많이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39:2.2 (429.6)

상급 세라핌천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일곱으로 나뉜다:

39:2.3 (429.7)

1. 정보 무리단. 이 세라핌천사들은 가브리엘, 빛나는 새벽별의 개인적 참모진에 소속된다. 그들은 네바돈의 협의회들에서의 그의 안내를 돕기 위해 영역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지역우주를 돌아다닌다. 그들은 가브리엘이 주(主) 아들의 대관으로서 통솔하는 막강한 무리들의 정보무리단이다. 이 세라핌천사들은 체계들 또는 별자리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며, 그들이 수집한 정보는 계속적이고 직접적이며 독립적인 순환회로를 따라 구원자별에 직접 전달된다.

39:2.4 (429.8)

다양한 지역우주들의 정보무리단들이 상호교통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오직 주어진 한 초우주 안으로 제한된다. 다양한 초(超)정부들의 업무와 활동행위들을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에너지 차이가 존재한다. 하나의 초우주는 대개 파라다이스 정보 중심의 규정과 설비를 통해서만 다른 초우주와 교통할 수 있다.

39:2.5 (430.1)

2. 자비의 음성. 자비는 세라핌천사 봉사와 천사 사명활동의 기본음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방법으로 자비를 표현하는 천사 무리단이 있어야 마땅하다. 이 세라핌천사들은 지역우주들의 실제적인 자비

사명활동자들이다. 그들은 사람과 천사의 보다 높은 자극과 보다 거룩한 감정들을 육성하는, 영감을 받은 지도자들이다. 현재 이 무리들의 지도자들은 모두 필사자 운명의 졸업 수호자이기도한, 완성 세라핌천사들이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천사 쌍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동물 기원 혼을 육신으로 사는 동안 안내하였고 그 후에 천사별의 순환계들을 지나갔으며 완성의 세라핌천사 무리단에 소집되었다.

39:2,6 (430,2) 3. 영 조화-협동자들. 상급 세라핌천사들의 세 번째 집단은 구원자별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지역우주 안에서 그들이 열매를 맺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활동한다. 그들의 임무들이 기본적으로 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마음들의 실제 납득 한계를 벗어나는 반면, 만일 이 천사들이 지역우주 안에서의 그들의 마지막 변환—가장 높은 모론시아 차원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영 존재들의 지위로—을 위해 구원자별에 있는 상승 체류자들을 준비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면 너희는 필사자들에 대한 그들의 사명활동의 일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맨션세계들에서 마음 계획자들이 생존되는 창조체들로 하여금 모론시아

마음의 잠재에 적응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효력 있게 이용하도록 돕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라핌천사들은 구원자별에 있는 모론시아 졸업생들에게 영의 마음의 새롭게 달성된 능력에 관하여 가르친다. 그리고 그들은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긴다.

39:2.7 (430.3) 4. 보좌관 교사들. 보좌관 교사들은 그들의 동료 세라핌천사들, 교습 조연자들의 조력자이자 연관하는 자들이다. 또한 그들은 지역우주의 광범위한 교육 체제와 개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지역체계들의 맨션세계들에 있는 칠중(七重)훈련자 계획과 관련이 있다. 이 계층의 세라핌천사들의 훌륭한 무리단이 진리와 정의(正義)의 근거를 육성시키고 증진시키는 목적을 위해 유란시아에서 기능한다.

39:2.8 (430.4) 5. 운송자들. 사명활동 영들의 모든 집단들은 자신들의 운송 부대, 한 구체에서 다른 구체로 저절로 여행할 수 없는 그 개인성들을 운송하는 사명활동에 전념하는 천사 계층들이다. 상급 세라핌천사들 중 다섯 번째 집단은 구원자별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우주의 본부들을 향하여 또는 그곳으로부터 움직이는 공간

횡단자들이다. 상급 세라핌천사들의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일부분은 그렇게 창조된 반면 나머지는 보다 낮거나 혹은 적게 자질로서 부여받은 집단들로부터 올라왔다.

39:2.9 (430.5) 세라핌천사의 “에너지 범위”는 지역우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초우주 필요조건들에도 전적으로 적합하지만, 유버사로부터 하보나에 이르는 것과 같은 오랫동안의 여행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고갈되는 그러한 여행에는 운송 자질을 가진 1차 2품천사의 특별한 힘이 요구된다. 운송자들은 이동하는 동안 비행을 위해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여행이 끝났을 때 개인적인 힘을 회복한다.

39:2.10 (430.6)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구원자별에서도 개인적 운송 형태를 소유하지 않는다. 상승자들은 하보나의 내부 순환계에서 마지막 잠이 든 이후 그리고 파라다이스에서 영원히 깨어나기 전까지는 어떤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갈 때 세라핌천사 수송수단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후에는 너희가 우주에서 우주로 갈 때 수송수단을 위해 천사들에게 의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39:2.11 (430.7) 세라핌천사 품속에 들어가는 과정은 변환 수면 과정 속에 자동적인 시간 요소가 존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죽은 또는 잠자는 체험과 다를 바가 없다. 너희는 세라핌천사 품 속에서 쉬는 동안 의식적으로 무의식 속에 있다. 그러나 생각 조절자는 전적으로 그리고 충만하게 의식을 가지는데, 사실은, 창조적이고 변환하는 일에 너희가 반대하거나 저항하거나 혹은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능률적이다.

39:2.12 (431.1) 세라핌천사 품속에 들어갈 때, 너희는 특정한 시간동안 잠을 자게 되며, 정해진 순간에 깨어나게 될 것이다. 전환과정의 잠을 자는 여행의 길이는 비물질적이다. 너희는 지나가는 시간을 직접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너희가 어느 도시에서 운송 매체를 타고 잠을 잔 후에 온 밤을 편안한 잠 속에 쉬고 나서 다른 먼 도시에서 잠을 깬 것과 비슷하다. 너희는 잠을 자면서 여행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세라핌천사 품속에서 공간을 통해 날아가며, 그 동안 너희는 쉬게—잠자게—되는 것이다. 이동하는 동안의 수면은 조절자들과 세라핌천사 운송자들 사이의 연락에 의해 유발된다.

39:2.13 (431.2) 천사들은 현재 너희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타버릴 수 있는 몸체들—살과 피—을 운송할 수는 없지만, 가장 낮은 모론시아 형태로부터 보다 높은 영 형태들에 이르기까지의 다른 모든 것들을 운반할 수 있다. 그들은 자연적인 죽음의 사건 속에서는 기능하지 않는다. 너희가 지상에서의 생애를 완결하였을 때, 너희 육신은 이 행성에 남는다. 너희의 생각 조절자는 아버지의 품속으로 나아가며, 이 천사들은 너희 개인성이 그 후에 맨션세계 정체화구현 위에 다시 조립되는 것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그곳에서 너희 몸체는 모론시아 형태를 갖게 되는데, 세라핌천사의 품속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너희는 무덤 속에 “필사 육신을 씨뿌리고”; 맨션세계들에서 “모론시아 형태를 거둔다.”

39:2.14 (431.3) 6. 기록자들. 이 개인성들은 구원자별 그리고 그것에 연관된 세계들의 기록들에 대한 접수와 서류정리 그리고 재발송에 특별히 관여한다. 또한 그들은 초우주의 거주 집단들 그리고 높은 개인성들을 위한 특별 기록자들로서 그리고 구원자별의 법정들의 직원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통치자들의 비서들로서 봉사한다.

39:2.15 (431.4)

방송자들—접수자들 그리고 발송인들—은 세라핌천사 기록자들 중에서 특별하게 구분된 하부기관인데, 기록을 발송하는 것과 기본적인 정보의 보급에 관여한다. 그들의 업무는 높은 계층에 해당하는데, 144,000 개의 메시지들이 동일한 에너지 계통들을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다중(多重) 순환회로로 되어 있다. 그들은 우두머리 세라핌천사 기록자 우두머리들의 비교적 높은 표의문자(表意文字) 기법을 수용하며 일반적인 이상징들을 가지고 제3 세라핌천사의 정보조화-협동자들 그리고 완성의 세라핌천사 무리단의 영화롭게 된 정보조화-협동자들, 둘 모두와 상호보답적인 접촉을 유지한다.

39:2.16 (431.5)

상급 계층의 세라핌천사 기록자들은 그렇게 해서 그들 자체 계층의 정보무리단 그리고 모든 하위 기록자들과 긴밀한 연락 관계를 이루게 하는 반면, 방송체제는 그들로 하여금 초우주의 보다 높은 기록자들과 그리고 이 경로를 통해 하보나의 기록자들 그리고 파라다이스에 있는 지식 보호관리자들과 계속적인 통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기록자들의 상급 계층

중에서 많은 숫자는 우주의 하급 구역에서 비슷한 지위들로부터 상승된 세라핌천사들이다.

39:2.17 (431.6) 7. 예비자들. 모든 유형의 상급 세라핌천사들 중에서 많은 숫자의 예비자들이 구원자별에 위치하고 있는데, 배정 감독자들에 의해 요청되었을 때 또는 우주 행정-관리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네바돈의 가장 먼 세계들로 즉시 보내질 수 있다. 상급 세라핌천사들의 예비자들은 찬란한 저녁별의 우두머리의 요청에 따라 메신저 도움자로 협조하기도 하는데, 그는 모든 개인적 통신을 보호하고 보내는 임무를 맡고 있다. 지역우주는 상호통신에 적당한 수단들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개인적인 메신저에 의한 파송을 요구하는 잔여 메시지들이 항상 있다.

39:2.18 (432.1) 전체 지역우주의 기본적인 예비자들은 구원자별의 세라핌천사 세계들에 주둔한다. 이 무리단은 모든 집단 유형의 천사들을 포함한다.

제 3 장. 감독자 세라핌천사

39:3.1 (432.2) 이 다재다능한 계층의 우주 천사들은 별자리들에 대한 배타적인 봉사에 배정되어 있다. 유능한 이들

사명활동자들은 자신들의 본부를 별자리 수도에 설치하지만 자신들이 배정된 영역을 위하여 네바돈 전체 구석구석에서 기능한다.

39:3.2 (432.3) 1. 감독하는 보좌관들. 감독하는 세라핌천사들 중에서 첫 번째 계층은 별자리 아버지들의 공동 작업에 배정되며, 지고자들의 항상-효과적인 조력자들이다. 이 세라핌천사들은 하나의 전체 별자리의 통일과 안정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둔다.

39:3.3 (432.4) 2. 법 예측자들. 공의(公義)에 대한 지적 기초는 법이며, 지역우주 안에서 법은 별자리들의 입법회의들 안에서 생겨난다. 심사숙고하는 이 기관들은 네바돈의 기본법을 성문화하고 공식적으로 공표하는데, 법은 개인적 창조체들의 도덕적 자유의지의 침해되지 않는 고정 방침으로 일관된 전체 별자리의 최고로 가능한 조화-협동을 제공하도록 고안되었다. 제시된 모든 법규들이 자유의지 창조체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예측을 별자리 법 제정자들 앞에 제시하는 것이 감독자 세라핌천사들 중 제2 계층의 임무이다. 그들은 지역체계들 안에서 그리고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

오랫동안 체험을 가진 덕분에 이 봉사를 수행하도록 잘
분별화된다. 이 세라핌천사들은 한 집단에 대해 특혜를
베풀려고 하지 않지만, 스스로를 위해 답변하기 위해
출석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 대변하고자 천상의 입법자들
앞에 출두한다. 심지어 필사자 사람도 우주 법의 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 세라핌천사들이,
반드시 사람의 과도기적이고 의식적인 요구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적인 사람, 공간 세계들에 있는 물질적 필사자의
진화하는 모론시아 혼의 참된 열망들을 신실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묘사해 주기 때문이다.

39:3.4 (432.5) 3. 사회 고안건축가들. 개개의 행성들로부터
모론시아 훈련 세계들 전반에 이르기까지, 이
세라핌천사들은 우주 창조체들의 사회적 진화를
증진시키고 진실한 모든 사회적 교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한다. 이들은 실제적 자아-납득과 진정한 상호 존중의
기본 위에서 의지적 창조체들의 상호연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모든 인공성의 지능 존재들에서의
관계적-연합을 제거하려고 애쓰는 천사들이다.

39:3.5 (432.6) 사회 고안건축가들은 자기 분야와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적절한 개별존재들을 한데 모아서, 그들이 이 땅 위에서 유능하고 잘 어울리는 작업 집단을 구성할 수도 있도록 온갖 일을 다 한다; 때로는 그러한 집단들이 계속되는 풍성한 봉사를 위해 맨션세계에서 자신들을 다시-연관하는 것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 세라핌천사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항상 달성하는 것은 아니며; 주어진 목적을 성취하거나 특정한 임무를 달성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집단을 구성할 수 있는 자들을 결합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그들은 최고의 물질적 가능성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39:3.6 (432.7) 이들 천사들은 맨션세계들과 보다 높은 모론시아 세계들에서 자신의 사명활동을 계속한다. 그들은 모론시아 세계들에서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그리고 셋 또는 그 이상의 개인들과 관련된 모든 일에 관여한다. 짝을 짓는, 보완적인, 또는 동업하는 원칙에 위에서 두 존재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둘 또는 그 이상이 봉사를 위해 집단을 형성할 때 그들은 사회적 문제를 구성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 고안건축가들의 사법권 속에 들어간다. 효율적인 이 세라핌천사들은 에덴시아에서

70개 부서들로 조직되며, 이 부서들은 본부 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70개 모론시아 진보 세계들에서 사명활동을 한다.

39:3.7 (433.1) 4. 윤리 민감성 제고자(提高者)들. 개인상호 관계의 도덕에 대한 창조체 인식의 성장을 육성시키고 증진시키는 것이 이 세라핌천사들의 임무인데, 왜냐하면 그러한 일이 인간적 또는 초인간적 사회와 정부의 계속적이고도 의도적인 성장에 대한 근원인 동시에 비결이기 때문이다. 이들 윤리 인식 제고자들은 행성 통치자들에 대한 자원하는 조언자들로써 그리고 체계 훈련 세계들에서 교환 교수들로서 그들이 봉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기능한다. 아무튼 너희는 너희가 에덴시아에 있는 형제신분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는 그들의 완벽한 안내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그들은 놀라시아텍 수도의 70개 위성들인 에덴시아의 사회적 실험실들 안에서 유니비타시아와 함께 거하는 그때에서야 실재적 체험에 의해 너희가 진정으로 탐구하게 될 형제우애관계에 대한 바로 그 진리들을 너희가 빨리 인식하도록 그들이 촉진시킬 것이다.

39:3.8 (433.2)

5. 운송자들. 감독자 세라핌천사들 중에서 다섯 번째 집단은 개인성 운송자들, 별자리들의 본부로부터 또는 그곳으로 운송하는 존재들로서 활동한다. 그러한 운송 세라핌천사들은, 한 구체로부터 다른 구체로 날아가는 동안, 자신들의 속도와 방향 그리고 천문학적 위치를 충만하게 의식한다. 그들은 마치 무생물 발사체처럼 우주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공간을 날아가는 동안 조금도 충돌할 위험이 없이 서로 근접되게 지나갈 수 있다. 그들은 전진 속도를 바꿀 수 있는 능력과 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충만하게 갖추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들의 지도자들이 우주 지능 순환회로들의 어떤 공간 교차로에서 그들에게 지도를 내리게 되면 목적지를 바꿀 수도 있다.

39:3.9 (433.3)

이 운송 개인성들은 우주적으로 분포된 세 개의 에너지 계통들 모두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데, 그 각각은 초당 186,280마일의 정확한 공간 속도를 갖는다. 그래서 이 운송자들은 너희 시간의 기준으로 초당 555,000마일에서 거의 559,000마일에 이르기까지 변화하는 그들의 긴 여행에서 그들이 평균 속도에 이르기까지 힘의 속도에 따라 에너지의 속도를 이중적으로 첨가시킬 수 있다. 그

속도는 근처에 있는 물질의 질량과 근접성에 의해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우주 힘의 주요 순환회로들의 힘과 방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주를 지나갈 수 있는, 그리고 적당하게 준비된 다른 존재들을 옮길 수도 있는, 세라핌천사들과 비슷한 수많은 유형의 존재들이 있다.

39:3.10 (433.4) 6. 기록자들. 감독하는 세라핌천사들 중에서 여섯 번째 계층은 별자리 관련사들에 대한 특별한 기록자들로 활동한다. 규모가 크고 효율적인 무리단이 놀라시아덱 별자리 본부인 에덴시아에서 기능하는데, 너희 체계와 행성은 거기에 속해 있다.

39:3.11 (433.5) 7. 예비자들. 감독자 세라핌천사들의 일반 예비자들은 별자리들의 본부에 주둔하고 있다. 그러한 천사 예비자들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비활동적인 상태가 아니며; 많은 숫자는 별자리 통치자들에 대한 메신저 도움자로 봉사하고; 어떤 이들은 배정되지 않는 보론다덱들의 구원자별 예비자들에게 배속되어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유란시아의 보론다덱 관찰자, 그리고 때로는 유란시아의 지고자 대리통치자와 같은, 특별한 임무를 위해 보론다덱 아들들에게 배속될 수 있다.

제 4 장. 행정-관리자 세라핌천사

39:4.1 (434.1) 세라핌천사의 네 번째 계층은 지역체계들의 행정-관리적 임무에 배정되어 있다. 그들은 체계 수도에 토착적이지만, 많은 숫자는 맨션 구체와 모론시아 구체 그리고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 주둔하고 있다. 네 번째 계층의 세라핌천사들은 본성적으로 자질로서 부여받은 유별난 행정-관리적 능력을 타고났다. 그들은 한 창조자 아들의 우주 정부에 있는 비교적 낮은 부서들의 지도자들의 유능한 보좌관들이며 지역체계들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세계들의 관련사들에 주로 관여하고 있다. 그들은 봉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직되어 있다:

39:4.2 (434.2) 1. 행정 보좌관들. 유능한 이 세라핌천사들은 1차 라노난덱 아들인 체계 주권자의 측근 보좌관들이다. 그들은 체계 본부의 복잡하게 얽힌 집행적 업무 내용들의 집행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도움자들이다. 또한 그들은 다양한 변형 세계들 그리고 거주민이 사는 행성들을 많은 숫자로 오가며 여행하는, 체계의 복지를 위하여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물리적 그리고 생물학적 유익을 위해 많은 임무들을 수행하는, 체계 통치자들의 개인적 관리인으로 봉사한다.

39:4.3 (434.3)

바로 이 행정-관리자 세라핌천사는 또한 행성영주들인 세계 통치자들의 정부에 배속되어 있기도 하다. 주어진 우주 안에 있는 행성들 대부분은 2차 라노난덱 아들의 관할권 아래에 있지만, 유란시아와 같은 특정한 세계들에서는 신성한 계획의 실패가 존재해 왔다. 행성영주가 변절한 사건 안에서, 이 세라핌천사들은 멜기세덱 접수자들과 행성권한에 있어서의 그들의 후계자들에게 배속되게 된다. 유란시아의 현재 활동하는 통치자는 이러한 다양한 계층의 세라핌천사 1,000명의 무리단의 도움을 받고 있다.

39:4.4 (434.4)

2. 공의(公義) 안내자들. 체계 또는 행성의 법정에서 사람들 그리고 천사들의 영원한 복지에 관한 문제들이 판결을 받으러 나아올 때 그것들에 관한 요약된 증거를 제시하는 천사들이다. 그들은 필사자 생존에 관계되는 모든 예비 청문회들을 위한 진술서들, 우주와 초우주의 보다 높은 법정들에게 그러한 사건들에 관한 기록을 그 후에 제시할 진술서들을 준비한다. 의심스러운 생존의 모든 사건들에 대한 변호는 이 세라핌천사들에 의해 준비되는데, 그들은 우주 공의(公義)를 다루는 행정-관리자들에 의해 도출된 고소장 안에 있는 모든 문제점의

각 사항들에 관한 모든 자세한 내용들을 완전하게
납득하고 있다.

39:4.5 (434.5) 공의(公義)를 무효화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이
천사들의 임무가 아니며, 오히려 정확한 공의(公義)가
공정함 속에서 관대한 자비를 모든 창조체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다. 이
세라핌천사들은 종종 지역 세계들에서 기능하는데,
회유하는 위원회들—중요하지 않은 오해를 위한
법정들—의 3인조 심판관들 앞에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비교적 낮은 영역들에서 한때 공의(公義) 안내자들로
수고하였던 많은 존재들이 나중에 보다 높은 구체들
그리고 구원자별에서 자비의 음성들로 나타난다.

39:4.6 (434.6) 사타니아에서의 루시퍼 반란 시에 매우 적은
숫자의 공의(公義) 안내자들만을 잃었지만, 다른 행정-
관리자 세라핌천사들과 보다 낮은 계층의 세라핌천사
사명활동자들 중 4분의 1이 방자한 개인적 해방의 궤변에
의해 잘못 인도되고 현혹되었다.

39:4.7 (434.7) 3. 우주 시민권 통역자들.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자신들의 우주 생애에서의 첫 번째 학생 도제(徒弟) 신분인

맨션세계 훈련을 마쳤을 때, 그들은 상대적인 성숙—체계 수도에서의 시민권—의 과도기 만족감을 누리도록 허락을 받는다. 각각의 상승 목표 달성이 사실적으로 성취되는 반면, 보다 높은 의미에서 그러한 목표들은 단순히 파라다이스로 향하는 긴 상승 경로 위에 있는 이정표들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들이 얼마나 상대적이든지 간에, 어떤 진화적 창조체도 목표 달성의 과도기 만족에도 불구하고 충분함이 결코 거절당하지 않는다. 파라다이스 상승에 있어서 일시적인 중단, 짧게 숨을 돌이키는 기간이 때때로 존재하는데, 그 동안에 우주 한계가 멈추고, 창조체 지위가 고정되며, 개인성은 목적 성취의 달콤함을 맛본다.

39:4.8 (435.1) 필사자 상승자의 생애에 있어서 그러한 기간들 중 첫 번째는 지역체계의 수도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정지 기간 동안 예루셈의 시민으로서의 너희는 여덟 번의 이전(以前) 삶 체험들—유란시아와 일곱 맨션세계들을 포함하는—의 기간 동안 너희가 획득한 그것들을 창조체 삶 속에 표현하려고 시도한다.

39:4.9 (435.2) 우주 시민 신분의 세라핌천사 통역자들이 체계 수도들의 새로운 시민들을 안내하고 우주 정부의

의무들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자극한다. 이 세라핌천사들은 또한 체계 관리-행정 안에 있는 물질아들과 가깝게 연관하며, 반면에 그들은 조화우주 시민권의 의무와 도덕성을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물질적 필사자들에게 묘사한다.

39:4.10 (435.3) 4. 도덕성 촉진자들. 맨션세계들에서 너희는 관련된 모든 유익을 위하여 자아-관리를 배우기 시작한다. 너희 마음은 협동을 배우는데, 다른 존재들 그리고 더 현명한 존재들과 어떻게 같이 계획을 세우는가를 배운다. 체계 본부에서 세라핌천사 선생들은 우주 도덕성—해방과 충성심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에 대한 너희의 인식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39:4.11 (435.4) 충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주 형제신분에 대한 지능적인 깊은 인식의 열매이다; 그 누구도 그렇게 많이 취하고서 아무 것도 내어주지 않는 자는 없다. 너희가 개인성 눈금을 올라감에 따라, 처음에 너희는 충성스럽게 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것을, 그 다음에는 자녀다워지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최종자가 되기 전까지는, 너희가

충성의 완전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해방의 최종을
자아-실현할 수 없다.

39:4.12 (435.5) 이들 세라핌천사는 다음과 같은 인내의 열매
풍성함을 가르친다: 침체는 확실한 죽음이지만, 과도하게
빠른 성장 역시 똑같이 자멸이라는 것; 높은 곳에 있는 한
방울의 물이 낮은 곳으로 떨어져, 그리고 앞으로
흘러나가고, 그리고 뒤이어지는 작은 폭포들을 지나
언제까지나 내려가며 흐르듯이,—그렇게 천천히 또한
그렇게 점진적인 단계에 따라—모론시아와 영
세계들안에서도 그렇게 언제까지나 위쪽으로 진보된다.

39:4.13 (435.6) 도덕성 촉진자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게
필사자 삶을 많은 연결고리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끊어지지 않는 사슬로 묘사한다. 필사자 유아기에
해당하는 이 구체인, 유란시아에서의 너희의 짧은
머무름은 오직 하나의 연결고리에 불과하며, 우주들을
가로지르고 그리고 영원한 시대들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긴 사슬에서의 바로 그 맨 첫 번째 고리이다. 이 첫 번째
일생에서 너희가 배우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생을 사는 삶의 체험이다. 이 세계의 일도

역시, 그것이 비록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이긴 하지만, 너희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길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의로운 삶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없지만, 심오한 만족감—성취에서의 의식—이 있고 이것은 상상 가능한 그 어떤 물질적 보상도 초월한다.

39:4.14 (435.7)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은 성실함, 더욱 성실함 그리고 더욱 더 성실함이다: 모든 사람들은 이 열쇠를 갖고 있다. 사람들은 결심하고, 더욱 결심하고, 그리고 더욱 더 결심함으로서—영 지위에서의 향상에—이 열쇠를 사용한다. 가장 높은 도덕적 선택은 가장 높은 가능한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며, 이것이 항상—그 어떤 모든 구체 안에서, 그들 모두 안에서—하느님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만일 사람이 그렇게 선택하면, 그가 예루셈의 가장 낮은 시민일지라도, 아니 비록 유란시아에 있는 필사자들의 가장 보잘 것 없는 자라 하더라도 그는 위대하다.

39:4.15 (436.1) 5. 운송자들. 이들은 지역체계들 안에서 기능하는 운송 세라핌천사들이다. 너희의 체계인 사타니아에서, 그들은 예루셈 쪽으로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승객들을

실어 나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성들 사이의 운송자로서 봉사한다. 사타니아의 한 운송 세라핌천사가 어느 학생 방문자 또는 다른 영 여행자 혹은 반(半)영적 본성의 여행자를 유란시아의 경계선에 두는 데에 하루가 지나는 경우가 드물다. 바로 이 우주 통과자들은 언젠가 너희를 체계 본부 집단의 다양한 세계들에게로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너희를 운송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예루셈 임무를 완결하게 되면, 그들이 너희를 에덴시아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도 그들은 인간이 기원된 세계를 향하여 뒤쪽으로 너희를 운송하지는 않을 것이다. 필사자는 자신의 일시적 실존의 섭리세대 동안에는 자신의 고향 행성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으며, 만일 그가 그 다음 세대 동안 되돌아가야만 한다면, 그는 우주 본부 집단의 운송 세라핌천사에 의해 호위를 받을 것이다.

39:4.16 (436.2) 6. 기록자들. 이 세라핌천사들은 지역체계들의 삼중적 기록의 보관자들이다. 체계 수도에 있는 기록 신전(神殿)은, 3분의 1은 물질적인데, 빛나는 금속들과 수정체들로 지어졌다; 3분의 1은 모론시아적인데, 영적이고 물질적인 에너지의 연락으로 꾸며져 있지만

필사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3분의 1은 영적이다. 이들 계층의 기록자는 이러한 삼중적 기록체계를 통솔하고 유지한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맨 처음에 있는 물질적 보관소들을 참조할 것이고, 물질아들들과 보다 높은 변형 존재들은 모론시아 회관들의 그러한 것들을 참조하며, 한편 영역의 세라핌천사들 그리고 보다 높은 영 개인성들은 영 구역의 기록들을 정독한다.

39:4.17 (436.3) 7. 예비무리단들. 예루셈에 있는 행정-관리자 세라핌천사의 예비무리단은 기다리는 시간 대부분을 체계의 다양한 세계들로부터 새로 도착한 상승하는 필사자들—맨션세계들의 공인된 졸업생들—과 영 동행자로서 이야기를 나누는 일에 보낸다. 너희가 예루셈에 머무는 동안 누리는 기쁨들 중 하나는 휴식을 취하는 동안, 많은 여행을 하고 많은 체험을 가진 기다리는 예비무리단인 이 세라핌천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방문하는 일일 것이다.

39:4.18 (436.4) 상승하는 필사자들에게 체계 수도를 그토록 사모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정다운 관계들이다. 너희는 물질아들들과 천사들 그리고 상승하는 순례자들이

처음으로 뒤섞이는 것을 예루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온통 영적인 존재들과 반(半)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물질적 실존으로부터 방금 창발하는 개별존재들이 여기에서 형제우애를 가진다. 필사자 형체들이 그곳에서 그토록 변형되고 그리고 인간의 빛 반응에서의 범위가 그토록 확장되기 때문에, 모두가 상호간의 인지와 그리고 동정하는 개인성 납득을 즐길 수 있다.

제 5 장. 행성 조력자

39:5.1 (436.5) 이 세라핌천사들은 체계 수도들에 있는 본부를 유지하며, 거주하는 아담의-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성의 아담들의 봉사, 진화적인 세계들에 있는 물질적 종족들을 생물학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향상시키는 봉사에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천사들의 보살피는 일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게 그것이 근접할 때, 영원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도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시간의 남자와 여자들이 겪는 실재적인 문제들에 그것이 접근해 갈 때 점점 더 흥미를 갖는다.

39:5.2 (437.1) 유란시아에 있는 행성 조력자들 대부분은 아담의-통치체제의 붕괴에 따라 제거되었으며, 너희의 세계에 대한 세라핌천사의 감독권은 관리행정자들과 과도기 사명활동자들 그리고 운명의 수호자들에게 더욱 많이 이양되었다. 그러나 너희의 불이행한 물질아들들의 이 세라핌천사 도움자들은 다음과 같은 집단들로 여전히 유란시아에서 봉사하고 있다:

39:5.3 (437.2) 1. 동산의 음성들. 인간 진화의 행성 과정이 최고도의 생물학적 차원을 달성하였을 때, 그곳에는 항상 물질아들들과 딸들, 아담들과 이브들이 자신들의 우월한 생명 원형질을 실재적으로 수여함으로써 종족들의 더욱 증진된 진화를 증강시키기 위해 출현한다. 그러한 아담과 이브의 행성 본부는 대개 에덴동산이라고 일컬어지며, 그들의 개인적인 세라핌천사들은 종종 “동산의 음성들”이라고 알려진다. 이 세라핌천사들은 진화적인 종족들의 육체적 그리고 지적 증진을 위한 그들의 모든 구체적인 투사들 속에서 행성의 아담들에게 매우 귀중한 봉사를 한다. 유란시아에서 아담의-불이행이 있는 후에, 이 세라핌천사들 중 일부는 행성에 남아 있었으며 아담의 후손들에게 공식적으로 배정되었다.

39:5.4 (437.3)

2. 형제신분의 영들. 아담과 이브가 진화 세계에 도착하였을 때 그것의 다양한 종족들 사이에서 종족적인 화합과 사회적 협동을 이룩하는 임무가 중요한 부분들 중의 하나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다. 색깔이 다르고 본성이 다양한 이 종족들이 인간 형제신분의 계획에 기꺼이 동참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들 원시인들은 평화로운 상호-연관의 지혜를, 성숙된 인간 체험의 결과로서 그리고 형제신분의 세라핌천사 영들의 신실한 사명활동을 통해서만, 오직 실현하도록 나온다. 이들 세라핌천사의 수고가 없다면, 진화하는 세계의 종족들을 조화시키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물질아들들의 노력이 크게 지연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너희의 아담이 유란시아의 진보를 위한 기원적 계획에 충실하였다면, 이 형제신분의 영들이 지금까지 인간 종족 속에서 놀랄만한 변환을 일으켰을 것이다. 아담의-불이행을 고려할 때, 너희가 현재 유란시아에서 누리고 있는 정도의 형제신분을 이 세라핌천사 계층들이 육성시키고 실현을 이루어왔다는 것은 정말로 놀랄만한 일이다.

39:5.5 (437.4)

3. 평화의 혼들. 진화적 사람들이 향상되고자 분투해온 초기 수천 년 기간들은 많은 투쟁들로 특징

지워진다. 평화는 물질적 영역의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다. 세계들은 평화의 세라핌천사 혼들의 사명활동을 통하여 “땅에서의 평화와 사람들 가운데 선한 뜻”을 처음으로 실현한다. 비록 이 천사들이 유란시아에서 초기에 수고할 때 크게 방해를 받았지만, 아담의 시대에 평화의 혼들의 우두머리이었던 베보나가 유란시아에 남아 있었으며 현재는 거주총독의 참모진에 배속되어 있다. 그리고 미가엘이 태어났을 때 천사 무리의 영도자로서 “하보나에서 하느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와 선한 뜻”을 온 세계들에게 알린 것이 바로 이 베보나였다.

39:5.6 (437.5) 행성 진화가 더욱 증진되는 신(新)시대가 되면 이 세라핌천사들은 필사자 생존에 대한 철학으로서 신성한 조율의 개념으로 속죄 관념을 대체하는 데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39:5.7 (437.6) 4. 신뢰의 영들. 의심은 원시인들의 선천적인 반응이다; 초기 시대들의 생존 투쟁들은 자연적으로 신뢰를 잉태하지 못하였다. 신뢰는 아담의-통치체제의 이들 행성 세라핌천사들의 사명활동에 의해 생겨나게 된

새로운 인간 습득물이다. 진화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신뢰를 주입시키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다. 하느님들은 매우 신뢰가 넘친다; 우주 아버지는 기꺼이 아낌없이 자신—조절자—을 사람의 관계적-연합에 대하여 신뢰한다.

39:5.8 (438.1) 세라핌천사의 이 전체 집단은 아담의-실패 이후에 새로운 체제로 이전되었고, 그들은 여전히 유란시아에서의 수고를 이어서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전적으로 실패한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자신감과 신뢰에 대한 그들의 이상들 중 많은 부분이 체현된 문명이 현재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39:5.9 (438.2) 더욱 진보된 행성 시대들이 되면 이 세라핌천사들은 불확실성이, 만족되어지는 연속성의 비밀이라는 진리에 대한 사람의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다. 성공을 위해 무지가 필수적일 때 창조체들에게 있어서 미래를 아는 것이 엄청나게 큰 실책이 될 수 있음을 필사 철학자들이 실현하도록 그들이 돕는다. 그들은 불확실성의 감미로움, 명확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달콤한 분위기와 매력을 사람이 더욱 맛볼 수 있게 한다.

39:5.10 (438.3) 5. 운송자들. 행성 운송자들은 개별 세계에서 봉사한다. 이곳 행성으로 옮겨진, 세라핌천사에 둘러싸인 존재들 대부분은 통과 도중이다; 그들은 단지 잠시 멈추어서 머무르는 것뿐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특별한 세라핌천사 운송자들의 보호관리에 있다; 한편 유란시아에 주둔하는 그러한 세라핌천사들의 숫자는 매우 많다. 이들은 유란시아로부터 예루셈으로 향하는 것처럼, 지역 행성에서부터 활약하는 운송 개인성들이다.

39:5.11 (438.4) 천사들에 대한 너희의 전통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유래되었다: 육체적 죽음 직전의 순간 동안, 때때로 어떤 반영적인 현상이 인간 마음 안에서 발생하며, 그리고 이러한 어슴푸레한 의식이 돌보고 있는 천사를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 여기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그 개별존재의 마음 안에 습관처럼 붙잡고 있었던 천사의 개념에 대한 의미로 즉시 전환되는 것이다.

39:5.12 (438.5) 천사들이 날개들을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개념은 그들이 공중을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개들을

가져야만 한다는 옛날의 관념에서 전적으로 기인된 것은 아니다. 인간 존재들은 운송 봉사를 준비하고 있는 세라핌천사들을 볼 수 있도록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 체험에서의 전통들이 천사들에 대한 유란시아의 개념을 크게 결정해 왔다. 행성 사이의 운송을 위하여 승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운송 세라핌천사를 목격할 때, 그 천사의 머리부터 발까지 뻗어 있는 두 쌍의 날개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실체 안에서 이들 날개들은 에너지 절연체—마찰 차단물—이다.

39:5.13 (438.6) 천상의 존재들이 한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로 운송되기 위하여 세라핌천사에게 둘러싸이게 될 때, 그들은 구체의 본부로 운송되며, 적당한 등록 과정을 마친 후에, 운송 수면상태에 들어간다. 그 동안 운송 세라핌천사는 행성의 우주 에너지 기둥 바로 위에 있는 수평 지점으로 이동해 들어간다. 에너지 차단물들이 열려 있는 동안, 직무를 수행하는 세라핌천사 보좌관들에 의해, 운송 천사의 바로 위쪽으로, 잠자는 개인성이 기술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위 쪽 쌍과 아래 쪽 쌍의 차단물들이 조심스럽게 닫히고 조절된다.

그리고 나서, 변환자와 전송자들의 영향 아래에서, 세라핌천사들이 우주 순환회로들의 에너지 흐름들 속으로 날아갈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이상한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외형적으로 볼 때 세라핌천사는 양극단을 향하여 커지며 호박색 빛깔의 기묘한 빛으로 뒤덮임으로써, 세라핌천사 속에 들어간 개인성을 식별하는 것이 즉시 불가능해진다. 떠날 준비가 다 갖추어지면, 운송 우두머리가 그 생명 운송체에 대한 적절한 검열을 하고, 그 천사가 알맞게 순환회로에 들어갔는지 아닌지에 대해 정해진 시험을 하며, 그 다음에는 여행자가 제대로 세라핌천사에게 둘러싸였다는 것과 에너지들이 조절되었다는 것과 천사가 절연(絶緣)되었다는 것 그리고 출발 신호를 보낼 준비가 다 갖추어졌음을 선언한다. 그들 중에 두 명의 기계적 통제자들이 그 다음에 자기 위치에 선다. 이때가 되면 운송 세라핌천사는 거의 투명한 상태가 되는데, 진동하면서, 반짝거리는 발광물의 어뢰 모양의 윤곽선을 갖는다. 그때 영역의 운송 운행관리자가 대개 1,000명에 이르는 살아있는 에너지 전송자들의 보조 중대들을 호출한다; 그는 운송의 목적지를 알리면서, 다가가서 세라핌천사

운송체의 바로 가까운 지점에 손을 대고, 세라핌천사 운송체는 번개 같은 속도로 앞으로 발사되어, 행성의 대기권이 계속되는 데까지 천상의 빛줄기 꼬리를 남긴다. 보강된 세라핌천사 시력으로 보더라도, 신기한 그 광경은 10분을 넘지 않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39:5.15 (439.1) 행성 공간 보고서들이 지정된 영적 본부들의 정오에 받아들여지고 반면, 동일한 이 장소로부터 운송자들은 자정에 파송된다. 이때가 가장 알맞은 출발시간이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을 때 그때가 표준시간에 해당된다.

39:5.16 (439.2) 6. 기록자들. 이들은 그것이 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기능할 때 그리고 우주 정부가 관련되고 관여할 때 행성의 주요 관련사들에 대한 보호관리자들이다. 그들은 행성 관련사들을 기록하는 기능을 갖지만 개별적인 삶과 체험의 일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39:5.17 (439.3) 7. 예비자들. 행성 세라핌천사들의 사타니아 예비무리단은 물질아들들의 예비자들과 밀접하게 관계적-연합하면서 예루셈에 주둔하고 있다. 풍부하게 많은 이 예비자들은 이 세라핌천사 계층의 복합적인

활동들의 각 위상을 준비한다. 이 천사들은 지역체계들의 개인적 소식 운송원이기도 하다. 그들은 과도기의 필사자들, 천사들, 그리고 물질아들들뿐만 아니라 체계 본부에 거주하는 다른 존재들을 섬긴다. 유란시아가 현재 사타니아와 놀라시아텍의 영적 순환회로들 밖에 있는 반면, 너희는 행성 사이의 관련사들과 다른 면으로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루셈으로부터 이들 메신저들이 체계의 모든 다른 구체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이 세계에도 자주 오기 때문이다.

제 6 장. 과도기 사명활동자

^{39:6.1 (439.4)} 그들의 이름이 시사하듯, 과도기 사명활동의 세라핌천사들은 물질적인 곳으로부터 영적인 곳으로의 창조체 변환에 그들이 기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봉사한다. 이 천사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로부터 체계 수도들에 이르기까지 활동하지만, 현재 사타니아에 있는 그들은 일곱 맨션세계들에 있는 생존된 필사자들을 교육하는 일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수고를 집중시킨다. 이 사명활동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개의 임무 구조에 따라 분화되어 있다:

39:6.2 (439.5) 1. 세라핌천사 전도자.

39:6.3 (439.6) 2. 인종 통역자.

39:6.4 (439.7) 3. 마음 계획자.

39:6.5 (439.8) 4. 모론시아 조연자.

39:6.6 (439.9) 5. 기술자.

39:6.7 (439.10) 6. 기록자-교사.

39:6.8 (439.11) 7. 사명활동 예비자.

39:6.9 (439.12) 맨션세계들과 모론시아 삶을 다루면서 설명할 때 과도기의 상승자에 대한 이 세라핌천사 사명활동자에 관해 너희가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제 7 장. 미래의 세라핌천사

39:7.1 (440.1) 이들 천사들은 네바돈의 비교적 오래된 영역들과 더욱 발전된 행성들을 제외하고는 광범위하게 사명활동하지 않는다. 그들 중 많은 숫자는 구원자별에 가까운 세라핌천사 세계들에 예비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네바돈에 빛과 생명의 시대가 밝아올 어떤 때에

관련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세라핌천사들은 상승하는-필사자 생애와 관련되어 기능하지만 상승하는 변형된 계층들 중 어떤 하나에 의해 생존되는 그 인간들을 거의 배타적으로 돌본다.

39:7.2 (440.2) 이 천사들이 유란시아 또는 유란시아 사람들에게 관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한, 그들의 매혹적인 활동들에 대한 설명을 유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제 8 장. 세라핌천사의 운명

39:8.1 (440.3) 세라핌천사들은 지역우주들에서 기원되며, 일부는 그들이 탄생된 바로 이 영역들에서 봉사 운명을 성취한다. 선임 천사장들의 도움과 조언을 받아 일부 세라핌천사들은 찬란한 저녁별의 고귀한 임무들로 등용될 수 있는 반면, 다른 세라핌천사들은 저녁별들의 계시되지 않은 조화-협동들의 지위와 임무를 달성한다. 또 다른 세라핌천사는 시도될 수 있는 지역우주 운명을 향해 탐험하지만, 천사별은 모든 천사들의 영원한 목적지로 항상 남아있다. 천사별은 파라다이스와 신(神) 달성으로

들어가는 천사의 출입구, 시간의 사명활동으로부터
영원의 고귀한 임무로 옮기는 과도기 구체이다.

39:8.2 (440.4) 세라핌천사들은 수십
가지들의—수백의—방법으로 파라다이스를 달성할 수
있지만 이 글들에서 상세히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39:8.3 (440.5) 1. 천상의 거장, 즉 기술 충고자 혹은 천상의
기록자로서 전문적 봉사의 완전을 성취함으로써 개인적
수용력으로 파라다이스 세라핌천사 거주지에 들어가는
허락을 얻음. 파라다이스 동행자가 되고, 그리하여 모든
것들의 중심에 도달하며, 아마도 그 후에 세라핌천사
계층들과 다른 존재들에게 영원한 사명활동자 그리고
충고자가 됨.

39:8.4 (440.6) 2. 천사별에 소환됨. 특정의 조건하에서
세라핌천사들은 높은 곳에서 명령을 받으며; 다른
환경들에서는 때로 필사자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에
파라다이스를 성취한다. 그러나 어느 세라핌천사 쌍이
어떻게 조화되든지에 상관없이, 그들은 천사별이나 다른
곳을 향한 출발을 시작할 수 없다. 성공적인 운명

수호자들만이 진화적 상승의 진보 경로에 의해
파라다이스로의 진행에 확실시될 수 있다. 모든 다른
존재들은 그들에게 높은 곳에 출현하라고 명령하는
소환장들을 갖고 오는 3차 초(超)천사의 파라다이스
메신저가 도착할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려야만 한다.

39:8.5 (440.7) 3. 진화적인 필사자 기법에 의해 파라다이스를
달성함. 시간의 생애에 있어서 세라핌천사의 최극의
선택은 그들이 최종의 생애를 달성하고 그리고
세라핌천사 봉사의 영원한 구체들에 배치되도록
분별화되는 수호천사의 직책이다. 시간의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개인적 안내자들은 운명의 수호자들이라고
불리는데, 그들이 신성한 운명의 경로에서 필사
창조체들을 수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높은 운명을 그들 자신이 결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9:8.6 (440.8) 운명의 수호자들은 이 봉사를 위하여 분별화되는
모든 계층의 세라핌천사들 중에서 더욱 체험이 많은 천사
개인성들의 계급들로부터 모집된다. 모든 조절자-융합
운명의 생존하는 필사자에게는 일시적인 수호자들이

배정되며, 이 동료들은 필사 생존자들이 필수적인 지적 그리고 영적 발달을 달성할 때 영구적으로 배속될 수 있다. 필사 상승자들이 맨션세계들을 떠나기 전에, 모두 영구적인 세라핌천사 연관-동료들을 소유한다. 사명활동 영들의 이 집단은 유란시아 이야기들과 관련하여 논의될 것이다.

39:8.7 (441.1) 인간 차원의 기원으로부터 하느님을 달성하는 것이 천사들에게는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들보다 약간 더 낮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주 바닥, 필사자 실존의 영적 저지대(低地帶)에서부터 시작할 수는 없는 반면,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저들에게 내려가서 그러한 창조체들을 한 발자국씩, 한 세계씩, 하보나의 정문을 향하여 선도(先導)할 수도 있도록 지혜롭게 배열되어 왔다. 필사자 상승자들이 하보나의 순환계들을 시작하기 위해 유버사를 떠날 때, 육신 속의 삶에 뒤이어 배정된 저들 수호자들은 대우주의 천사의 목적지, 천사별을 향하여 자신들이 여행하는 동안, 그들의 순례자 연관-동료들에게 일시적인 작별을 고하게 될 것이다. 이들 수호자들은

여기에서 세라핌천사 빛의 일곱 순환계들을 시도하고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39:8.8 (441.2) 물질적 삶 동안 운명 수호자들로써 배정되었던 이 세라핌천사들 중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숫자는 하보나 순환계들에 두루 자신들의 필사자 연관-동료들과 동행하며, 어떤 다른 세라핌천사들은 필사자 상승과 전혀 다른 길로 중앙우주의 순환회로들을 지나간다. 그러나 상승하는 경로와 상관없이, 모든 진화하는 세라핌천사들은 천사별을 통과하며, 대부분은 하보나 순환회로들 대신에 이 체험을 겪는다.

39:8.9 (441.3) 천사별은 천사들을 위한 운명 구체며, 이 세계에 대한 그들의 달성은 상승자별에서 갖는 필사자 순례자들의 체험들과 매우 다르다. 천사들은 그들이 천사별에 도달하기 전에는 자신들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천사별에 도착한 천사들 중 빛나간 경우는 전혀 없었다; 완성된 세라핌천사의 가슴속에서 죄가 결코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39:8.10 (441.4) 천사별의 졸업생들은 다양하게 배정되는데: 하보나-순환회로 체험을 가진 운명 수호자들은 대개

필사자 최종자 무리단에 편입된다. 하보나 격리 시험에서 통과된 다른 수호자들은 파라다이스에 있는 그들의 필사자 연관-동료들과 다시 합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일부는 필사자 최종자의 영속하는 동료들이 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죽지 않는 다양한 최종자 무리단에 편입되며, 많은 숫자는 세라핌천사 완성의 무리단에 소집된다.

제 9 장. 세라핌천사 완성의 무리단

^{39:9.1 (441.5)} 영들의 아버지에게 도달하고 완성의 세라핌천사 업무에 받아들여진 후에, 천사들은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한 세계에 대한 사명활동에 언젠가 배정된다. 그들은 우주들의 높은 삼위일체화 존재들에게 그리고 파라다이스 그리고 하보나의 고양(高揚)된 업무들에 배속된다. 지역우주들의 이 세라핌천사들은 중앙 그리고 초우주들의 사명활동 영들로부터 그들을 전에 격리시켰던 신성(神性) 잠재 안에서의 차이점들을 체험적으로 보상해 왔다. 완성의 세라핌천사 무리단의 천사들은 초우주 2품천사의 연관-동료들로서 그리고 최종 세라핌천사의 높은 파라다이스-하보나 계층들에 대한 보좌관들로서 봉사한다. 그러한 천사들에 대하여는 시간의 생애가 완결되었다; 그 이후로 그리고 언제까지나 그들은

하느님의 종들이고 신성한 개인성들의 동행인들이며
파라다이스 최종자의 동반자들이다.

39:9.2 (441.6) 많은 숫자의 완성 세라핌천사들이 그들의 고향
우주들로 돌아오는데, 그곳에서 체험적 완전의
사명활동에 의해 신성한 자질의 사명활동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비교해서 말하자면, 네바돈은 보다 젊은
우주들 중의 하나이며 그렇기 때문에 보다 오래된
영역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숫자의 이
회귀(回歸) 천사별 졸업자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역우주는 충분한 숫자의
완성 세라핌천사들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는 진화적인
영역들이 그들이 빛과 생명의 지위에 접근함에 따라서
이들의 봉사가 점점 더 필요함을 드러내는 것이
의의(意義)깊기 때문이다. 완성 세라핌천사들은 현재
세라핌천사의 최극(最極) 계층들과 함께 더욱 광범위하게
봉사하지만, 일부는 각각의 다른 천사 계층들과 함께
봉사한다. 심지어는 너희의 세계도 완성의 세라핌천사
무리단의 12개 특수 집단들의 광범위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 행성감독 주(主) 세라핌천사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게 새롭게 임명된 각각의 행성영주와 동행한다.

39:9.3 (442.1) 많은 매혹적인 사명활동의 큰길들이 완성 세라핌천사들에게 열려 있지만, 그들 모두가 파라다이스-이전(以前) 시대에 운명 수호자로서 배정되기를 갈망하였던 것과 똑같이, 파라다이스-이후 체험에 있어서 그들은 육신화된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증여 수행원들로서 봉사하기를 최고로 바란다. 그들은 진화 세계들의 필사 창조체들로 하여금 신성(神性)과 영원의 파라다이스 목표를 향하여 길고도 매혹적인 여행을 출발하게 하는 우주적 계획에 여전히 최극으로 헌신하고 있다. 하느님을 발견하고 신성한 완전을 성취하는 전체의 필사 모험 여행에 두루, 세라핌천사 완성의 이 영 사명활동자들은 시간의 신실하게 사명활동하는 영들과 함께 언제든지 그리고 언제까지나 너희의 진정한 친구이자 틀림없는 조력자들이다.

39:9.4 (442.2) [네바돈의 세라핌천사 무리 우두머리의 요청에 따라 활동하는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40 편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

40:0.1 (443.1) 많은 주요 집단의 우주 존재들의 경우처럼,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들의 일반적인 일곱 계층들이 계시되어 왔다:

40:0.2 (443.2) 1. 아버지-융합 필사자.

40:0.3 (443.3) 2. 아들-융합 필사자.

40:0.4 (443.4) 3. 영-융합 필사자.

40:0.5 (443.5) 4. 진화 세라핌천사.

40:0.6 (443.6) 5. 상승하는 물질아들.

40:0.7 (443.7) 6. 전환된 중도자.

40:0.8 (443.8) 7. 개인성구현된 조절자.

40:0.9 (443.9) 진화 세계들의 낮은 동물-기원 필사자들로부터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에 이르기까지의 이들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는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멀리 퍼지는 창조의 모든 우주들 안에 그리고 모든 시간에 두루, 신성한 사랑과 자비로운 겸손의 아낌없는 증여에 대한 영광스러운 낭송으로 발표하고 있다.

40:0.10 (443.10) 이들 발표들은 신(神)들에 대한 묘사로 시작했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 집단 한 집단, 불멸(不滅)의 잠재성을 자질로서 부여받은 가장 낮은 계층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존재들의 우주 눈금을 내려왔다; 그리고 이제—공간의 진화 세계에서의 기원된 한때의 필사자—나는 상승하는 아들관계의 계층에 관하여, 특히 시간과 공간의 필사 창조체에 관하여, 하느님의 영원한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다듬고 그리고 계속하려고 구원자별로부터 파송되었다.

40:0.11 (443.11) 이 이야기의 반이 넘는 부분이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세 기본 계층들에 헌신될 것이기 때문에, 비(非)필사 상승계층의 아들관계—세라핌천사, 아담의, 중도자, 그리고 조절자—를 먼저 고찰될 것이다.

제 1 장. 진화 세라핌천사

40:1.1 (443.5) 동물 기원의 필사 창조체들만이 아들관계를 누리는 특권을 가진 유일한 존재는 아니다; 천사 무리 역시 파라다이스를 달성하는 지고의 기회를 공유한다. 수호 세라핌천사들 역시 시간의 상승하는 필사자들과 가진 체험과 봉사를 통하여 상승하는 아들관계의 지위를

획득한다. 그러한 천사들은 천사별을 통하여
파라다이스를 달성하며 많은 숫자는 필사자 최초의
무리단에 소집되기도 한다.

40:1.2 (443.6) 하느님과 아들관계, 최종자의 숭고한 높이로
오르는 것은 천사에게 있어서 훌륭한 성취이고, 영원한
아들의 계획과 내주 하는 조절자의 항상-제시되어 있는
도움을 통하여 너희가 영원한 생존을 달성하는 것을 크게
초월하는 완성이다; 그러나 수호 세라핌천사들은, 그리고
간혹 다른 존재들도, 실재적으로 그러한 상승을 이루어
낸다.

제 2 장. 상승하는 물질아들

40:2.1 (444.1) 하느님의 물질아들들은, 모두가 하강하는
아들들로 분류되는 멜기세덱들 그리고 그들의 연관-
동료들에 이어서 지역우주에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행성
아담들—진화 세계들의 물질아들들 그리고 딸들—은
자신들이 기원된 구체들, 지역체계들의
수도(首都)들로부터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로 하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아담과 이브가 생물학적 제고자(提高者)로서의 행성 연관 사명을 전적으로 성공하였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에 있는 거주민들의 운명을 공유한다. 그러한 세계가 빛과 생명의 진보된 단계들 속에 안주할 때, 신실한 이 물질아들과 딸은 모든 행성 행정-관리적 의무들을 사임하도록 용인되며, 하강하는 모험 여행으로부터 그렇게 해방된 후에, 그들은 지역우주의 기록들 속에 완전해진 물질아들들로서 자신을 등록하도록 허락된다. 마찬가지로, 행성 임무가 길게 연기되었을 때에는, 고정된 지위의 물질아들들—지역체계들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처한 구체들의 활동들로부터 물러나며 완전해진 물질아들들로서 비슷하게 등록된다. 이러한 절차들이 있는 후에, 그러한 해방된 아담들과 이브들은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들로 인정을 받으며 그때 그들의 현재 지위와 영적 달성의 정확한 그 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보나와 파라다이스를 향해 긴 여행을 즉시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은 필사자 그리고 다른 상승하는 아들과 함께 이 여행을 하는데, 그들이 하느님을 발견할 때까지

그리고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영원한 봉사 속에서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을 성취할 때까지 계속한다.

제 3 장. 전환된 중도자

40:3.1 (444.3) 하강하는 하느님의 아들들의 행성 증여들로부터
즉각적인 유익이 결여된다 하더라도, 파라다이스 상승이
멀리 연기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 행성이 빛과
생명의 중간 신(新)시대들을 달성한 직후에 (그 이전에
없었다면), 중도 창조체들의 두 집단 모두가
행성의무로부터 풀려난다. 때로는 빛의 성전이 내려오고
행성영주가 행성주권자의 직위로 승진하는 날 그들 중
대부분이 그들의 인간 친족들과 함께 변환되기도 한다.
행성 봉사에서 벗어남에 따라, 두 계층들은 모두
지역우주에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들로 등록되며
물질세계들의 필사 종족들의 진보를 위해 준비된 바로 그
경로들을 따라 긴 파라다이스 상승을 즉각적으로
시작한다. 1차 집단은 다양한 최종자 무리단이 되게 되어
있지만, 2차 또는 아담의-중도자들은 모두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에 모집되도록 길이 정해진다.

제 4 장. 개인성구현된 조절자

40:4.1 (444.4) 시간의 필사자들이 우주 아버지의 영 선물들과의
행성 관계적-연합에서 그들 혼의 영원한 생존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였을 때, 그러한 실패는 조절자에 속한 의무,
사명활동, 봉사, 또는 헌신 그 어떤 면에서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필사자가 죽으면서, 남기고 떠난
그러한 감시자들은 신성별로 돌아가고, 뒤 이어서, 생존
못한 자들의 판결에 이어서, 그들은 시간과 공간 세계로
다시 배정될 수 있다. 때로는, 이러한 종류의 반복된 봉사들
이후에 또는 육신화된 증여 아들의 내주 하는 조절자로서
기능하는 것과 같은 어떤 비범한 체험을 가진 후에, 유능한
이 조절자들은 우주 아버지에 의해 개인성구현 된다.

40:4.2 (445.1)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은 독특하면서도 불가해한
계층의 존재들이다. 실존적 전(前)개인적 지위의
기원으로서, 그들은 물질적 세계들의 낮은 필사자들의
삶과 생애에의 참여로서 체험을 쌓아 왔다. 그리고 체험을
가진 이 생각 조절자들에게 증여된 개인성은, 우주
아버지가 그의 창조체 창조위에 체험적 개인성을
증여하는 개인적이고도 그리고 계속되는 사명활동에서
기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원천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은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들, 아들관계의 그러한 모든 계층들 중에서 최고로 분류된다.

제 5 장.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

40:5.1 (445.2)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의 사슬에서 필사자들이 가장 마지막 고리를 대표한다. 기원의 영원한 아들의 개인적 접촉은, 점점 감소되어가는 신성의 그리고 점점 증가되어가는 일련의 인간 개인성구현을 통하여, 너희와 매우 비슷한 존재, 너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존재에 이르기까지, 아래로 옮겨간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신앙이 파악할 수도 있는 위대한 진리—영원한 하느님과의 아들관계—를 영적으로 알아차리도록 되어있다!

40:5.2 (445.3) 마찬가지로 기원의 무한한 영은, 점점 감소되어가는 신성의 그리고 점점 증가되어가는 인간 계층의 긴 일련에 점점 더 가까이 영역의 투쟁하는 창조체에게 다가가며, 시간의 필사 생애의 생명 여정에서 너희를 개인적으로 지키고 안내하는 천사들—그들보다 너희가 약간 더 낮게 창조된—그들 안에서 표현의 한계에 이르고 있다.

40:5.3 (445.4) 아버지 하느님은 우주들의 우주에 두루 거의 한없는 숫자의 상승하는 창조체들과 그렇게 가까운 개인적 접촉을 이루려 해도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며, 올 수도 없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낮은 창조체들과의 개인적인 접촉에 힘을 잃은 것은 아니다; 너희는 신성한 현존 없이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아버지 하느님이 너희와 직접적인 개인성 현시활동으로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는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 신성한 감시자의 정체성으로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의 것으로 계신다. 그리하여 개인성으로는 그리고 영으로는 너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계시는 아버지가, 개인성 순환회로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필사 아들과 딸들과의 바로 그 혼들과의 내적 교제의 영 접촉 안에서, 너희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다가와 계신 것이다.

40:5.4 (445.5) 영 정체화구현이 개인적 생존의 비밀을 이룩하고 영적 상승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리고 생각 조절자들이 육신 속에서의 삶 동안 사람과 정체성이 확인되는 잠재를 가진 유일한 융합의 영들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들은 이러한 신성한 선물들, 내주 하는 신비

감시자들에 대한 그들의 관계에 따라서 1차적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40:5.5 (445.6) 1. 조절자가 일시 또는 체험으로 머무는 필사자들.

40:5.6 (445.7) 2. 비(非)-조절자-융합 유형의 필사자들.

40:5.7 (445.8) 3. 조절자-융합 잠재의 필사자들.

40:5.8 (445.9) 제1 계열—과도기적 또는 체험적으로 조절자가 머무는 필사자들. 이 계열 명칭은 진화하는 모든 행성들을 위해서 일시적이며, 제2 계열의 저들을 제외한, 거주민이 사는 모든 세계의 초기 단계들 동안에 사용된다.

40:5.9 (445.10) 제1 계열의 필사자들은 인류 진화의 초기 신(新)시대들 동안 공간 세계들 위에 거주하며 인간 마음들의 가장 원시인들의 유형들을 포용한다. 아담의-이전(以前) 유란시아와 비슷한 많은 세계들에는, 지극히 많은 숫자의 비교적 높고 더욱 발달된 유형의 원시인들이 생존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지만 조절자와의 융합을 달성하지는 못한다. 여러 시대들에 걸쳐서, 사람이 더 높은 영적 의지 차원에 까지 사람이 상승하기 이전에, 조절자들은 그들이 육신에서의 잠깐의 삶 동안에

투쟁하는 이 창조체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며, 조절자들이 그러한 의지 창조체들 속에 내주하는 순간 집단 수호천사들이 기능을 개시한다. 제1 계열의 이들 필사자들이 개인적인 수호자들을 갖지 못하지만, 한편 집단 보호관리자들을 갖는다.

40:5.10 (446.1) 체험적 조절자는 원시 인간 존재와 함께, 육신에서의 그의 전체 삶에 두루 여전히 남아있다. 조절자들은 원시인들의 진보에 많이 기여하지만 그러한 필사자들과의 영원한 연합을 형성할 수는 없다. 조절자들의 과도기 사명활동은 두 가지를 이룩한다: 첫째로, 그들은 진화적인 지능체의 본성과 활동에서 가치 있고 실재적인 체험, 다른 세계에서 더욱 발달된 존재들과 나중에 접촉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우 귀중하게 될 체험을 획득한다. 둘째로, 조절자들의 과도기 체류는 뒤이어 가능하게 될 영 융합을 위한 그들의 필사자 주체들을 준비시키는 쪽으로 많이 기여한다. 하느님을 찾는 이러한 유형의 모든 혼들은 지역우주의 어머니 영의 영적인 포용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성취하며, 그렇게 지역우주 체제의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된다. 아담의-이전(以前)

유란시아로부터 많은 개인들이 그렇게 해서 사타니아의 맨션세계들로 나아갔다.

40:5.11 (446.1) 고난과 시련의 긴 시대들에 두루 영적 지능의 보다 높은 차원들을 향해 필사자 사람들이 올라가야 한다고 명령한 하느님들은 그 상승의 각 단계마다 그의 지위와 요구들을 주목한다; 진화하는 종족들의 초기 시대의 투쟁하는 이들 필사자에 대한 최종 심판에 있어서 그들은 신성하게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황홀하도록 자비롭다.

40:5.12 (446.2) 제2 계열—조절자 비(非)융합 유형의 필사자들. 이들은 자기 안에 내주하는 조절자들과의 영원한 연합을 초래할 수 없는 특별한 인간 존재들의 유형이다. 한 개, 두 개 그리고 세 개의 뇌를 가진 종족간의 유형 분류는 조절자 융합 요인이 아니다; 모든 그러한 필사자들은 동족이지만, 이들 조절자 비(非)융합 유형들은 의지 창조체들의 전적으로 다른 그리고 현저하게 변경된 계층이다. 비(非)호흡 존재들 대부분이 이 집단에 속하며, 조절자들과 보통 융합하지 않는 다른 많은 집단들이 있다.

40:5.13 (446.3) 제1 계열과 마찬가지로, 이 집단의 각 구성원들은 육신 속에서의 일생 동안 혼자만의 조절자의 사명활동을

받는다. 일시적인 삶 동안, 이들 조절자들은 필사자들이 융합 잠재를 가지는 다른 세계들에서 이루어지는 일시적 내주의 그들 주체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한다. 이러한 제2 계열의 필사자들 속에 순결의 조절자들이 내주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나 보다 높은 인간 유형들은 흔히 능란하고 체험이 있는 감시자들과 연락한다.

40:5.14 (446.4) 동물-기원 창조체들을 증진시키기 위한 상승 계획에서, 이들 존재는 유란시아 유형의 필사자들에게 미치는 것과 같은, 동일한 하느님의 아들들의 헌신된 봉사를 받는다. 비(非)융합 행성들에서의 조절자들과 세라핌천사 협동은 융합 잠재의 세계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제공 된다; 운명의 수호자들은 유란시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구체들에서 사명활동하고 필사자가 생존될 때, 생존되는 혼이 영 융합을 이룰 때 비슷하게 기능한다.

40:5.15 (446.5) 너희가 맨션세계들에서 이러한 변경된 필사자 유형들과 만날 때, 너희는 그들과 의사를 교통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똑같은 체계 언어를 사용하는데 다만

변경된 기법을 이용할 뿐이다. 이들 존재들은 영과 개인성
현시활동에서 너희 계층의 창조체 삶과 동일한데, 특정한
물리적 모습과 사실적 면에서 유일하게 다른 점은 그들이
생각 조절자들과 비(非)융합이라는 것이다.

40:5.16 (447.1) 이러한 유형의 창조체가 우주 아버지의
조절자들과 왜 융합할 수 없는가에 관해서, 나는 설명할 수
없다. 우리들 중 일부는 어떤 특별한 행성 환경 속에서
실존이 유지되도록 존재들을 고안하려는 노력으로,
생명운반자들이 지능 의지 창조체들에 대한 우주
계획에서 조절자들과의 항구적 연합을 가져오는 것이
선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근원적인 변경을
만들 필요성과 직면하고 있다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종종 질문하는 것은: 이것이 상승 계획의 의도적인
부분인가 아니면 계획되지 않은 부분인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아직 그 대답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40:5.17 (447.2) 제3 계열—조절자-융합 잠재의 필사자들. 모든
아버지-융합 필사자들은, 유란시아 종족과 같이, 동물
기원이다. 그들 중에는 조절자-융합 잠재를 갖는 1개-뇌,
2개-뇌, 3개-뇌를 가진 유형들이 있다. 유란시아 사람들은

중간 또는 2개-뇌를 가진 유형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1개-뇌를 가진 집단들보다 우월하지만 3개-뇌를 가진 계층들과 비교한다면 현저하게 제한된다. 물리적인-뇌 자질의 이 세 가지 유형들은 조절자 증여에 있어서, 세라핌천사 봉사에 있어서, 또는 영 사명활동의 어떤 다른 위상에 있어서도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세 가지 뇌 유형들 사이의 지적 그리고 영적 차이는 현세적인 삶 속에서 가장 크고 맨션세계들을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존재, 그렇지 않았다면 마음 자질과 영적 잠재에서 매우 비슷했을 개별존재들의 특징을 나타낸다, 체계 본부들과 그 이후부터는, 이러한 세 가지 유형들의 진보가 같아지고, 그들의 결국 생겨나는 파라다이스 운명은 동일하다.

40:5.18 (447.3) 무(無)번호 계열들. 이 이야기들이 진화 세계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황홀한 변동들을 포용할 수는 없다. 열 번째 세계들마다 10진법 소수 즉 실험 행성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만 진화 구체들의 행진상태를 소수점으로 찍는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는 모른다. 같은 집단의 행성들 사이의 차이처럼, 살아있는 창조체의 게시된 계층들 사이의 차이도 설명하기에는 너무도 많긴

하지만, 이 발표가 상승 생애와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명백하게 밝힌다. 그리고 상승 생애는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에 대한 어떤 고찰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40:5.19 (447.4) 필사자 생존의 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은 언제까지나 분명하게 해두자: 필사자 실존의 온갖 가능한 위상의 모든 혼들은,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내주하는 조절자들과 협동하는 데 기꺼움을 분명히 현시하고, 그리고 하느님을 발견하고 신성한 완전을 달성하기를 바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러한 바램들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인간을 밝혀주는 참된 빛”이라는 사실에 대한 원시적인 이해의 희미한 첫 번째 불빛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생존될 것이다.

제 6 장. 하느님의 신앙 아들

40:6.1 (447.5) 필사 종족들은 지능과 개인적 창조의 가장 낮은 계층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다. 너희 필사자들은 신성하게 사랑을 받고 있다, 너희들 각자 모두는 영광스러운 체험의 특정한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너희는 아직은 본성으로는 신성한 계층에 속하지 않는다; 너희는

전적으로 필사 존재이다. 너희는 순간적인 융합이 일어나는 상승하는 아들로써 간주되지만, 시간과 공간에서의 필사자들의 지위는 생존되는 필사자 혼이 영원하고 불멸의 영의 어떤 유형과 최종으로 합병이 일어나는 사건 이전에 있는 신앙의 아들이다.

40:6.2 (448.1) 유란시아의 인간 존재들과 같은 그러한 낮고 물질적인 창조체들이 하느님의 아들들, 지고자의 신앙 자녀라는 사실은 엄숙하고도 숭고한 사실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으니,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증여하셨는지 보라." "그를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느님의 아들됨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을 그가 이미 주셨다." 한편으로는 "너희가 장차 무엇이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는 하느님의 신앙 아들들"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또다시 두려워할 속박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관계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며, 이로서 너희는 '우리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게 되었다." 옛 선지자는 영원하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에게도 나는 내 집에서 아들들보다 더 좋은 이름과 자리를 줄 것이다; 그들에게 영속하는 이름을 줄 것이니, 그 이름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므로,
하느님께서 너희들 가슴속에 그의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

40:6.3 (448.2) 거주되는 모든 진화세계에는 이들 하느님의 신앙
아들, 은혜와 자비의 아들, 신성한 가족에 속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 하느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필사 존재들이
있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들로
여길 자격이 있으니,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40:6.4 (448.3) 1. 너희는 영적 약속에서의 아들들, 신앙
아들들이다. 너희는 아들관계의 지위를 받아들인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아들관계를 실체 안에서 믿으며, 그리고
그로서 하느님과 너희의 아들관계는 영원토록 실제이다.

40:6.5 (448.4) 2. 하느님의 창조자 아들이 너희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는 사실 안에서 너희의 맏형이다; 너희가 만일
참으로 영 안에서 그리스도, 승리를 거둔 미가엘과
관계되어진 형제가 되면, 그러면 너희는 또한 영 안에서
너희가 공동으로 가지는 아버지—또한 모든 존재의 우주
아버지—의 아들임이 틀림없다.

40:6.6 (448.5) 3. 아들의 영이 너희에게 부어져 있고, 모든 유란시아 종족에게 값 없이 그리고 확실하게 증여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들들이다. 이 영은 너희를 그 근원이 되는 신성한 아들에게로, 그리고 신성한 아들의 근원이 되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에게로 언제까지나 이끌 것이다.

40:6.7 (448.6) 4. 우주 아버지는, 그의 신성한 자유-의지성에서의, 창조체 개인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너희는 하느님이 그의 아들들이 될까 싶은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는 자유의지 행동에서의 신성한 자발성을 어느 정도 자질로서 부여받았다.

40:6.8 (448.7) 5. 너희 안에는 우주 아버지의 단편(斷片)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래서 너희는 모든 하느님 아들의 신성한 아버지와 직접 관계가 있다.

제 7 장. 아버지-융합 필사자

40:7.1 (448.8) 조절자들을 보냄, 그들의 내주(內住)는 정말로 하느님 아버지의 심오한 신비중의 하나이다. 우주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의 이들 단편은 창조체 불멸성의 잠재를 지닌다. 조절자들은 불멸의 영들이며, 그들과의 연합은 융합된 필사자의 혼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한다.

40:7.2 (448.9) 너희 자신의 종족 중에서 생존되는 필사자들은 이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 집단에 속한다. 너희는 현재 행성 아들, 아직은 상승하는 아들이라고 볼 수 없는, 생명운반자들의 이식(移植)에 의해 발생되고 아담의-생명 주입에 의해 변경된 진화 창조체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정말로—심지어는 영광과 신성 달성의 최고 높이에 이르는—상승 잠재를 가진 아들들이며 너희는 자유의지로서 내주하는 조절자의 영성화 시키는 활동들과 협동함으로써, 상승하는 아들관계의 이 영적 지위를 달성할 수 있다. 너희와 너희 조절자가 마침내 그리고 언제까지나 융합될 때, 너희 둘이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 미가엘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하나였던 것처럼, 너희는 사실로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40:7.3 (449.1) 보호관찰의 그리고 진화적인 행성에서 내주하는 사명활동의 조절자 생애를 자세히 전하는 것은 내 임무의 일부분이 아니다; 이러한 위대한 진리를 상술하는 것은 너희 전체 생애를 포용한다. 나는 조절자-융합 필사자들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 특정 조절자 기능들을 언급한다. 내주하는 이들 하느님의 단편은 물리적인

실존의 초기 시절로부터 네바돈과 오르본톤에서의 상승하는 생애에 두루 그리고 하보나를 지나 파라다이스 자체에 이르기까지 너희 존재 계층과 함께 있다. 그 후에, 영원한 모험여행에서, 이 동일한 조절자는 너희와 하나이며 너희에게 속한다.

40:7.4 (449.2) 이들은 우주 아버지로부터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 하라.”는 명령을 받은 필사자들이다. 아버지는 자신을 너희에게 증여하셔서, 자기 자신의 영을 너희 안에 두셨다; 그러므로 그는 너희들에게 궁극적 완전을 요구한다. 시간의 필사자 구체들로부터 영원의 신성한 영역들에 이르는 필사자 상승에 관한 설명은 흥미를 자아내는 이야기이고 나의 임무에 포함되지도 않지만, 숭고한 이 모험은 필사자 사람의 최극 연구가 되어야 한다.

40:7.5 (449.3) 우주 아버지의 단편과의 융합은 결국 생겨나는 파라다이스 달성의 신성한 인준과 동등하며, 그러한 조절자-융합 필사자들은 하보나 순환회로들을 모두 지나 파라다이스에 계신 하느님을 발견한, 인간 존재들의 유일한 등급이다. 조절자-융합 필사자들에게는 우주봉사의 생애가 넓게 열려져 있다. 너희들 각자 앞에

얼마나 엄청난 운명의 존엄성과 달성의 영광이
놓여있는가!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너희는 충분히
잘 알고 있는가? 너희는—비록 너희가 너희의 소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삶의 초라한 길을 지금 터벅터벅
걷고 있지만, 너희 앞에 펼쳐져 있는 영원한 성취의 절정의
장엄함을 이해하는가?

제 8 장. 아들-융합된 필사자

40:8.1 (449.4) 실천적으로 모든 생존되는 필사자들이
맨션세계들 중 하나에서 또는 보다 높은 모론시아
구체들에 그들이 도착하는 즉시 그들의 조절자들과
융합되는 반면, 융합이 지연되는 일정 경우들이 있다,
일부는 그들이 우주 본부들의 마지막 교육세계들에
도착할 때까지 생존에 대한 이 최종 확실성을 체험하지
못한다; 끝없는 생명을 향한 이들 필사자 후보자들 중
일부는 그들의 신실한 조절자들과의 정체성 융합 달성에
전적으로 실패한다.

40:8.2 (449.5) 그러한 필사자들은 판결 당국에 의해 생존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정을 받아왔고, 그들의 조절자들
또한 신성별에서 돌아옴으로써 맨션세계들을 향한 그들의

상승에 일치해 왔다. 그러한 존재들은 체계, 별자리를 거쳐, 그리고 구원자별 순환회로의 교육 세계들을 통하여 상승해 왔으며; 그들은 융합을 위한 기회를 “일흔 번씩 일곱 번” 맞았고 그리고는 여전히 그들의 조절자들과 하나 됨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이다.

40:8.3 (449.6) 어떤 동조화하는 어려움이 아버지 융합을 억제하는 것이 명백할 때, 창조자 아들의 생존 심판관이 소환된다. 그리고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개인적 대표자에 의해 인정을 받은 이 조사 법정¹이 융합 달성 실패에 대하여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원인도 상승하는 필사자의 책임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그들은 지역우주의 기록들 위에 그렇게 보증되며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게 정식으로 이 결론을 보낸다. 그 결과로 내주하는 조절자는 개인성구현된 감시자들에게서 확인을 받으려고 신성별로 즉시 되돌아가며, 이러한 작별이 있고나서 모론시아 필사자는 창조자 아들의 개별화된 선물과 즉시 융합된다.

40:8.4 (450.1) 네바돈의 모론시아 구체들을 영-융합 필사자들이 공유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이들 아들-융합 창조체들은 멀리 있는 파라다이스 섬을 향해 안쪽으로 여행하는

그들의 조절자-융합 형제들과 함께 오르본톤에 대한 봉사를 공유한다. 그들은 정말로 너희 형제들이며, 너희는 너희가 초우주의 훈련 세계들을 통해 지나가면서 그들의 관계적-연합을 몹시 즐기게 될 것이다.

40:8.5 (450.2) 아들-융합 필사자들은 숫자가 많은 집단이 아니어서, 오르본톤 초우주에는 백만 명 미만이 있다. 파라다이스에 거주하는 운명을 제외하고, 그들은 모든 면에서 그들의 조절자-융합 연관-동료들과 등등하다. 그들은 초우주 임무에 따라 파라다이스를 자주 여행하지만 그곳에 영구히 거주하는 경우는 드물며, 한 집단으로서, 그들이 태어난 초우주에 국한되어 있다.

제 9 장. 영-융합된 필사자

40:9.1 (450.3) 상승하는 영-융합 필사자들은 셋째근원 개인성들이 아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개인성 순환회로에 포함되어 있지만,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전(前)마음 영의 개별존재화와 융합하였다. 그러한 영 융합은 자연적인 삶의 기간 동안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맨션세계들에서 필사자가 모론시아 실존으로서 다시 깨어날 때에만 발생된다. 융합 체험에는 중복되는 일이

전혀 없다; 의지 창조체는 영 융합되거나, 아들 융합되거나, 또는 아버지와 융합된다. 조절자와 융합된 자들은 결코 영과 융합되거나 아들과 융합되지 않는다.

40:9.2 (450.4) 필사 창조체들의 이들 유형은 조절자-융합 후보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절자들로 하여금 육신 속에서 삶 동안 내주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조절자들은 물질적인 삶의 기간 동안 그러한 존재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지만 그들의 제자 혼들과 영속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은 결코 없다. 일시적으로 머무는 동안 조절자들은 그들이 조절자 융합을 위한 후보자들에서 활동하는 것과 똑 같이 필사자 본성—혼—의 바로 그 영 상대자를 효과적으로 강화시킨다. 필사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조절자들의 업무는 너희 자신의 종족들에서의 그들의 기능과 전적으로 동족이지만, 필사자 분해가 이루어질 때 조절자들은 이 영-융합 후보자들을 영구히 떠나며, 모든 신성한 감시자들의 본부, 신성별로 직접 나아가서, 그들 계층의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기 위해 그곳에서 기다린다.

40:9.3 (450.5) 그러한 잠자는 생존자들이 맨션세계들에서 재(再)개인성구현 될 때, 떠나간 조절자의 자리는 관련

지역우주에서 무한한 영의 대표자,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영의 개별존재화로서 채워진다. 이 영 주입(注入)은 생존되는 이 창조체들을 영-융합 필사자가 되게 한다. 그러한 존재들은 모든 면에서 볼 때 마음과 영에 있어서 너희와 동일하다; 그들은 정말로 너희의 동기생들인데, 융합 후보자의 너희 계층과 함께 그리고 아들과 융합되는 저들과 함께 공동으로 맨션 그리고 모론시아 구체들을 공유한다.

40:9.4 (450.6) 그러나, 영-융합 필사자들이 그들의 상승하는 형제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하나 있다: 기원된 물질적 세계들에서 가졌던 인간 체험의 필사자 기억이 육체로서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있는데 왜냐하면 영적인 의의(意義)를 갖는 인간 삶에서의 그런 사건들의 영 부분(副本) 또는 복사본을 내주하는 조절자들이 획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융합 필사자들에게는 인간 기억이 잔존되는 그러한 기능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에 대한 조절자 복사본들은 충분하고도 온전한 것이지만, 이 획득물들은 떠나간 조절자들의 체험적 소유물이고 그들이 전에 내주하였던 창조체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은데, 그러므로 그들이

네바돈의 모론시아 구체들의 부활실에서 깨어날 때 그들은 마치 새롭게 창조되는 존재들, 이전(以前) 실존에서의 의식이 없는 창조체들이 된다.

40:9.5 (451.1) 지역우주의 그러한 자녀들은 연관된 세라핌천사 그리고 케루빔에 의해 그리고 기록하는 천사들이 만든 필사자 생애에 대한 기록들을 조회해 봄으로써 다시 그것을 회상하여 그들의 예전 인간의 기억 대부분을 다시 소유할 수 있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없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물질적이고 그리고 필사자 삶 에서 체험적으로 기원을 갖는 생존된 혼이, 필사자의 생겨난 일들 기억은 갖지 못한 반면, 과거 체험의 기억되지 않는 이들 생겨난 일들에 대해 체험적-인지-반응을 가지기 때문이다.

40:9.6 (451.2) 영-융합 필사자들이 기억되지 않는 과거에 체험한 생겨난 일들에 대해 듣게 될 때, 그 설명되는 생겨난 일에 실체의 감정적 느낌 그리고 사실의 지적 본질특성이 즉시 갖추어지는, 그러한 생존자의 혼 (정체성) 안에는 체험적 인지의 즉각적 반응이 있다, 이러한 이원적(二元的)

반응은 필사자 체험의 기억되지 않는 면들에 대한 재구성과 인지 그리고 인준을 이룬다.

40:9.7 (451.3) 심지어 조절자-융합 후보자들에서도, 영적 가치를 가진 인간 체험들만이 생존되는 필사자와 돌아오는 조절자의 공동 소유이며, 이 때문에 필사자의 생존에 뒤이어 즉시 기억되어진다. 영적 의의(意義)가 없는 그러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이들 조절자-융합자조차도 생존되는 혼의 인지-반응 속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어느 하나의 생겨난 일이 다른 이에게는 아니지만 한 필사자에게는 영적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절자-기억하는 생겨난 일들의 그러한 저장을 모으고, 그리고는 이와 같이 그들이 공동으로 가지는, 또 그들 중 어느 하나의 삶에서 영적 가치가 있었던 그 모든 체험들을 재구성하는 것이 같은 행성에서의 당대의 상승자 집단에게는 가능하게 된다.

40:9.8 (451.4) 우리는 기억을 재구성하는 그러한 기법들을 매우 잘 납득하지만, 개인성 인지의 기법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어떤 개인성 상호간의 반응이 배어있기 위해서는 기억 그 자체와 그리고 그것들을 재구성하는 기법들이

인지의 충족과 함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때 관계적-연합에 있었던 개인성들이 상호 반응하는 것은 기억의 작용과는 아주 독립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40:9.9 (451.5) 영-융합 생존자는 그가 살았던 행성 섭리시대 이후에 자신의 고향 세계를 다시 방문함으로써, 육신으로 그가 살았던 삶에 대하여 많이 배울 수도 있다. 그러한 영 융합 자녀들은 지역우주의 봉사에 전반적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들의 인간 생애를 조사할 수 있는 이 기회들을 맞이할 수 있다. 그들은 너희들처럼 파라다이스 최종의 무리단에 들어가는 높고도 고양된 운명을 같이 가질 수 없다; 오직 조절자-융합 필사자들만이 또는 특별하게 포용된 다른 상승 존재들만이, 영원한 신(神) 모험여행을 기다리는 그들의 계급으로 소집된다. 영-융합 필사자들은 지역우주들의 영구 시민들이다; 그들은 파라다이스 운명을 열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보장되지는 않는다. 네바돈에 있는 그들의 우주 고향은 구원자별을 돌고 있는 세계들 중 여덟 번째 집단, 유란시아의 행성 전설에 의해 그려졌던 그것과 매우 흡사한 본성과 위치를 갖는 운명이자-하늘이다.

제 10 장. 상승자 운명들

40:10.1 (452.1)

일반적으로 말해서, 영-융합 필사자들은 한 지역우주에 국한된다; 아들-융합 생존자들은 한 초우주에 제한된다; 조절자-융합 필사자들은 우주들의 우주를 관통하도록 운명되어 있다. 필사자 융합의 영들은 항상 기원의 차원으로 상승한다; 그러한 영 실존개체들은 시원적 근원의 구체로 반드시 되돌아간다.

40:10.2 (452.2)

영-융합 필사자들은 지역우주에 속한다; 그들은 통상적으로 자신들이 국한되어 있는 태어난 영역을 넘어서, 그들에게 가득 퍼진 영의 공간 범위의 경계를 벗어나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아들-융합 상승자들도 마찬가지로 영 수여자질의 근원까지 상승하며, 창조자 아들의 진리 영이 연관된 신성한 사명활동자에 초점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의 “융합 영”은 더욱 높은 우주의 반영 영으로 실행된다. 칠중 하느님의 지역우주 차원과 초우주 차원 사이에 있는 그러한 영 관계는 설명하기에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인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반영 영들의 자녀들—창조자 아들의 2품천사 음성—안에서 어김없이 계시되고 있다. 생각 조절자들은, 파라다이스의 아버지로부터 오고 있으며, 필사자 아들이

영원한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설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40:10.3 (452.3) 필사 존재가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와 영원하게 융합하지 않거나 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연관적 기법 속에 있는 신비한 변수가 상승 기획에서 결점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표면적으로는 아들 융합과 영 융합이 파라다이스-달성 계획의 어떤 세부내용에서 설명되지 않는 실패에 대한 보상들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결론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최극 우주 통치자들이 세운 법칙들에 따라 펼쳐진다고 배웠다.

40:10.4 (452.4) 우리는 이 문제를 분석해 왔고 그리고 의심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였는데, 그것은 모든 필사자들을 궁극적인 파라다이스 운명에 위탁하는 것은, 창조자 아들의 그리고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들이, 전적으로 더 높은 영역을 향하여 통과하는 저들을 위한 봉사에만 종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시간-공간 우주들에 불공평할 것이라는 결론이다. 그리고 지역우주 정부와 초우주 정부는 각각 상승하는 시민 지위의 영구 집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할나위 없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즉 그것으로 이들 관리-행정에서의 기능들이 영구 지위를 가진 영화롭게 된 필사자들로 이루어진 특정 집단들의 수고에 의하여, 아반돈터들과 수사시아들의 진화적 보완물들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더할나위 없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상승 기획은 시간-공간 관리-행정에 바로 그러한 상승하는 창조체 집단을 효과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이제는 매우 명백하다; 우리는 여러 번 궁금히 여겨왔다: 이 모든 것이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이 창조자 아들들과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게 상승하는 영구 주민 집단을 제공하려고 고안한 모든-지혜 계획들의 의도된 일부분인가? 다가올 우주 시대들에서 이들 영역의 관련사들을 앞으로 옮기는 데 점점 더 유능하게 되어 갈, 진화된 시민관계의 계층을 제공하려고 고안한 모든-지혜 계획들의 의도된 일부분인가?

40:10.5 (452.5) 필사자 운명들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것은 그 어떤 면에서도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크거나 더 작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조절자-융합 상승자들은 영원한 미래에서 그들 앞에 펼쳐진 최종자로서의 광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생애를

정말로 소유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상승하는 형제들보다 우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필사자 생존의 신성한 계획에서의 선택하는 작용에는 그 어떤 편애도 없고, 그 어떤것도 제멋대로 작용하지 않는다.

40:10.6 (453.1) 조절자-융합 최종자가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봉사 기회를 명백하게 누리지만 한편, 이러한 목표 달성은 초기 곧 채 안정되지 못한 신시대에서 상대적으로 완전 달성의 후기 곧 정착된 시대까지, 어떤 한 우주 또는 초우주에서 오랜 세월에 걸친 분투에 참여하는 기회에서 그들을 자동적으로 차단한다. 최종자는 대우주의 일곱개 분할 전체에서 놀랍고도 멀리-퍼지는 과도기 봉사 체험을 획득하지만, 완성의 네바돈 무리단의 영-융합 고참들이 현재 특징을 이루고 있는 어떤 한 우주에 관한 상세한 지식을 그들은 통상적으로 획득하지 못한다. 이들 개별존재들은 1천만 개의 거주 세계들에서 하나씩 하나씩 펼쳐지고 있는 행성들의 시대에서 상승하는 행렬들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지역우주 시민들에 대한 충심어린 봉사에서, 초점화된 체험으로 생겨나는 지혜—권한 있는 지혜—의 높은 본질특성이 시간의 무르익음으로 충만할 때까지

체험은 체험 위에 더해진다, 그리고 이 지혜는 그 자체로서 어느 지역우주의 안정에서도 사활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40:10.7 (453.2) 그것은 영 융합자들이 그러한 것 같이, 유버사에서 거주 지위를 획득한 아들-융합 필사자들과도 마찬가지로이다. 이들 존재들 중 일부는 오르본톤의 최초 신시대들에서 흩어져 나오며, 그들은 일곱 번째 초우주의 번영과 결국 생겨나는 안정에 항상-증강되는 봉사 기여를 만들어내는 통찰력-강화 지혜가 서서히 축적되는 어떤 기관을 대표한다.

40:10.8 (453.3) 지역우주와 초우주 시민관계의 이 고정 계층들의 궁극적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파라다이스 최종자가 최초의 외계 공간 차원에 해당하는 행성 체계들에서 신성을 확장하는 개척자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 상승하는 진화적 투쟁을 하는 그들의 아들-융합 그리고 영-융합 형제들은 먼 훗날 오르본톤과, 외부 공간에 있는 현재는 등록되어 있지 않고 거주하지 않는 이 은하계들로부터 광대한 영-탐색 격류로서의 그것의 자매 창조에 두루 부어지게 될 파라다이스 순례자들의 밀려오는 파도를 환영할 준비를 그들이 하고 있으면서

완전하게 된 초우주들의 체험적 평형을 유지하는 일에
기꺼이 이바지하리라는 것이 아주 가능하다.

40:10.9 (453.4) 영 융합자 중 대부분이 지역우주의 시민들로서
영구토록 봉사하는 반면,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만일
그들의 우주 사명활동 중 어떤 위상이 초우주에 그들의
개인적 현존을 필요하게 된다면, 그들을 더 높은 우주로
올라가게 하려고 그러한 존재의 변환들이 이들 시민들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에 그러한
영-융합 필사자들을 출두시키라는 명령서들을 가지고
천상의 수호자가 도착할 때, 그들은 그렇게 상승하여
다시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그들은 초우주의
피보호자들이 되며, 파라다이스 그리고 하보나의 봉사에
차례로 소환되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천상의 수호자에
대한 보좌관들로서 영구토록 봉사한다.

40:10.10 (453.5) 그들의 영-융합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특정한 수정되는 변환들을 겪지 않는다면 아들
융합자들은 하보나를 지나가지도 않고 파라다이스를
달성하지도 않는다. 유익하고도 충분한 이유들이 있어서
그러한 변화들이 어떤 아들-융합 생존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면, 이 존재들은 중앙우주의 일곱 번째 순환회로들 위에서 때때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특정한 숫자의 아들-융합 필사자들과 영-융합 필사자들이 실재적으로 파라다이스로 상승하는데, 아버지-융합 필사자들을 기다리는 것과 동일한 많은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한다.

40:10.11 (453.6) 아버지-융합 필사자들은 잠재적인 최종자이다; 그들의 목적지가 우주 아버지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도달하지만, 현재 우주 시대의 시야 내에서는 최종자는, 그런 상태로는, 운명 달성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미(未)완결된 창조체들—여섯 번째-단계 영들—로 남아 있으며 그래서 빛과 -생명-이전(以前) 지위의 진화하는 권역에서는 활동할 수 없는 것이다.

40:10.12 (454.1) 필사자 최종자가 삼위일체 포용되면—막강한 메신저(使者)와 같이, 삼위일체화 아들이 되면—그때 최종자는 적어도 현재 우주 시대에서는 운명을 달성한 것이다. 막강한 메신저들과 그들의 동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일곱 번째-단계 영이라 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 포용은 다른 것들에 추가되어 언젠가는 최종자가 일곱 번째-단계 영으로서 성취하게 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자질로서 부여한다. 영-융합 또는 아들-융합 필사자들이 삼위일체화 된 후에는, 그들은 초우주 관리-행정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똑같이 되는 그러한 조절자-융합 상승자들과 함께 파라다이스 체험을 두루 통과한다. 현재는 미(未)완결된 창조체들인 최종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이들 삼위일체화 선택의 아들 또는 달성의 아들들은 적어도 지금은 완결된 창조체들이다.

40:10.13 (454.2)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들관계의 상승하는 계층의 운명들을 대조하면서 “보다 크다” 혹은 “보다 작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도무지 적당치 않다. 모든 그러한 하느님의 아들은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을 공유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자신의 창조체 아들 각자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는 상승하는 운명을 달성할 수도 있는 자신의 창조체들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듯이, 상승자의 운명을 차별하는 분은 더욱 아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 각자를 사랑하고, 그 애정은 참되고, 거룩하고, 신성하고, 무제한적이고, 영원하고 그리고 독특함에서 모자람이 없는 것이며—이 아들과 저 아들에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배타적으로 증여되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다른 모든 사실들이 철저하게 빛을

잃도록 만든다. 아들관계는 창조자에 대한 창조체의 최극의 관계이다.

40:10.14 (454.3) 필사자로서 너희는 이제 신성한 아들관계의 가족 안에 있는 너희 위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 증여 아들의 삶의 체험에 의하여 그토록 강화되고 빛으로 밝혀진 파라다이스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안에 너희 자신의 것으로 있는 그토록 자유롭게 제공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장점들을 이용해 볼 마땅한 책무들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장치와 모든 힘이 신성한 완전이라는 파라다이스 목표에 이르는 너희의 궁극적 달성을 보장하려고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40:10.15 (454.4) [구원자별의 가브리엘의 참모진에 일시적으로 배속된 막강한 메신저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41 편 지역우주의 물리적 측면

41:0.1 (455.1) 각각의 지역 창조를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떼어놓는 특징적인 공간 현상은 창조 영의 현존이다. 네바돈 전체는 구원자별의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공간 현존에 의해 확실하게 충만 되어 있으며, 바로 그러한 현존은 우리 지역우주의 외부 경계선에서 확실하게

차단된다. 우리 지역우주 어머니 영에 의해 충만하게 채워진 그것이 네바돈이다; 그녀의 공간 현존 너머로 확장하는 그것이 외계 네바돈인데, 오르본톤 초우주의 가외(加外)-네바돈 공간—다른 지역우주—이다.

41:0.2 (455.2) 대우주의 행정 조직이 중앙우주와 초우주 그리고 지역우주 정부들 사이의 뚜렷한 구분을 드러내는 반면, 그리고 이 구분들이 하보나의 공간 분리와 일곱 초우주들 안에서 천문학상으로 병렬 구조를 갖는 반면, 물리적인 구분에 대한 명확한 한계선들이 지역 창조계들을 구별시키지는 않는다. 오르본톤의 대구역 영역들과 소구역 영역들까지도 (우리들에게는)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지만, 지역우주들의 물리적 경계들을 정체성 확인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이것은 이 지역 창조계들이 초우주의 전체 에너지 전하(電荷)의 분할을 다스리는 어떤 창조적 원칙들에 입각하여 행정-관리적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반하여, 그들의 물리적 요소들, 공간의 구체들—태양들, 흑암 섬들, 행성들, 기타들—은 일차적으로 성운으로부터 기원되며, 이것들은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의 특별한 창조-이전(선험적)의 계획들에 따라 그들의 천문학적 외양을 결정한다.

41:0.3 (455.3)

하나 또는 그 이상의—많은 숫자라 할지라도—그러한 성운은 네바돈이 안드로노바 그리고 다른 성운의 별들과 행성 산물들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지역우주의 권역 안에 포함될 수 있다. 네바돈의 구체들은 다양한 성운 조상에게 속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우리들의 현재 공간 본체의 집합체를 산출할 만큼 힘에 대한 지능적 노력에 의해 조절된 공간 운동의 특정 최소 공통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초우주의 궤도 위에서 하나의 인접된 단위로서 함께 움직인다.

41:0.4 (455.4)

그러한 것은 네바돈의 지역 별 구름을 구성하는데, 지금은 우리의 지역 창조가 소속하고 있는 오르본톤의 소구역인 궁수(弓手)자리 주변에서 점점 더 안정된 궤도에서 회전하고 있다.

제 1 장. 네바돈 힘 중심

41:1.1 (455.5)

공간 구체들의 어머니 회전바퀴들인 나선형의 또 다른 성운(星雲)들은 파라다이스 기세조직자들에 의해 태동되었다; 중력 반응의 성운 진화에 이어서, 그것들은 힘 중심들 그리고 물리통제자들에 의해 초우주 기능을

대신하는데, 그 결과로 그들은 별 모양과 행성의 산출물의 결과적인 세대들에 대한 물리적 진화를 지도할 충분한 책임을 지게 된다. 네바돈의 우주-이전(以前) 상태에 대한 이 물리적 감독은 우리의 창조자 아들이 도래함에 따라 우주 조직을 위한 그의 계획에 즉각적으로 조화-협동된다.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의 권역 안에서 최극 힘 중심들과 주(主)물리통제자들이 네바돈의 다양한 공간 본체들을 하나의 집대성된 행정-관리적 단위가 되도록 견고하게 묶는 통신 회선, 에너지 순환회로 그리고 힘 통로들의 광대한 복합체를 산출하기 위해, 나중에 나타나는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 그리고 다른 존재들과 협동하였다.

41:1.2 (456.1) 네 번째 계층인 100명의 최극 힘 중심들이 영구적으로 우리 지역우주에 배정되어 있다. 이 존재들은 유버사의 제3 계층 중심들로부터 힘의 유입 계통들을 받아들이며 낮추어지고 변형된 순환회로들을 우리들의 별자리들 그리고 체계들의 힘 중심들에게 전달한다. 이 힘 중심들은 다른 방법으로 오르내리고 변화하는 에너지들의 평형 그리고 분배를 유지시키도록 작동하는 통제 그리고 균일화의 살아있는 체계를 산출하기 위해 서로 연관하여

기능한다. 아무튼 힘 중심들은 태양 흑점들 그리고 체계 전기적 교란들과 같은, 과도기고 지역적인 에너지 상승들에 관여하지 않는다; 빛과 에너지는 공간의 기본 에너지들이 아니며; 그것들은 2차적이고 보조적인 현시활동들이다.

41:1.3 (456.2) 100명의 지역우주 중심들이 구원자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그 구체의 정확한 에너지 중심지에서 기능한다. 구원자별과 에덴시아 그리고 예루셈과 같은 고안건축 구체들은 공간에 있는 태양들로부터 그들을 매우 독립적이도록 만드는 방법들에 의해 빛이 비추고 열을 받으며 에너지를 얻는다. 이들 구체들은 힘 중심들 그리고 물리통제자들에 의해 건설되며—정돈되며—에너지 분배에 대해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도록 고안되었다. 그러한 에너지 통제의 초점들에 대한 그들의 활동들에 기본을 두고, 힘 중심들은 자신들의 살아있는 현존에 따라서 공간의 물리적 에너지들의 방향을 잡고 통로를 개설한다. 그리고 이 에너지 순환회로들은 물리적-물질적 그리고 모론시아-영적 현상들 전체에 기본을 이룬다.

41:1.4 (456.3) 다섯 번째 계층인 10명의 최극 힘 중심들이 네바돈의 1차 구역들, 100개 별자리들 각각에게 배정되어 있다. 너희의 별자리인 놀라시아덱 안에서 그들은 본부 구체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별자리의 물리적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별 모양의 체계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에덴시아에는 가까이에 있는 힘 중심들과 완전하고도 일정한 연락에 있는 10명의 연관-동료 기계적 통제자들과 10명의 후란달랑크들이 존재한다.

41:1.5 (456.4) 여섯 번째 계층의 최극 힘 중심 1명이 지역체계 각각의 정확한 중력 초점에 위치하고 있다. 사타니아 체계 안에는 배정된 힘 중심이 체계의 우주적 중심에 위치한 공간의 흑암 섬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흑암 섬들 중 많은 것들은 특정한 공간-에너지들을 동원하고 방향을 잡는 거대한 발전기들이며, 자연적인 이 환경들은 사타니아 힘 중심에 의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데, 그의 살아있는 몸체는 보다 높은 중심들과 연락하여 기능하고, 우주의 진화적인 행성들 위에서 더욱 물질화 된 힘의 흐름들로 하여금 주(主)물리통제자들에게 향하게 한다.

제 2 장. 사타니아 물리통제자

41:2.1 (456.5) 주(主)물리통제자들이 대우주에 두루 힘 중심들과 함께 봉사하는 반면, 사타니아와 같은 지역체계 안에서의 그들의 기능들은 더욱 이해하기 쉽다. 사타니아는 놀라시아텍 별자리의 행정-관리적 조직을 만드는 100개 지역체계들 중 하나인데, 샌드마티아, 아순티아, 포로기아, 란투리아, 소르토리아 그리고 글란토니아 체계들과 인접해 있다. 놀라시아텍 체계들은 여러 가지 면들에서 다르지만, 사타니아와 매우 흡사하게 모두 진화적이고 진보적이다.

41:2.2 (457.1) 사타니아 자체는 7,000개 이상의 천체 집단들 또는 물리적 체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 중 소수는 너희의 태양 체계가 기원된 것과 비슷하게 기원되었다. 사타니아의 천체 중심은, 그것에 부속된 구체들과 함께 체계 행정부의 본부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공간의 거대한 흑암 섬이다.

41:2.3 (457.2) 배정된 힘 중심의 현존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타니아의 전체 물리적-에너지 체계에 대한 관리는 예루셈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 이 본부 구체에 위치한 주(主)물리통제자는 체계 힘 중심과 조화-협동하여

일하는데, 예루셈에 본부를 둔 힘 검열자들의 연락
우두머리로 봉사하고 지역 체계에 두루 기능한다.

41:2.4 (457.3) 에너지를 순회시키고 흐르게 하는 일은 사타니아
전체에 흠어져 있는 500,000명의 살아있고 지능적 에너지
조종자들에 의해 감독을 받는다. 그러한 물리통제자들의
행동을 통해, 감독하는 힘 중심들은, 심하게 가열된 동그란
공들과 그리고 에너지-대전(帶電)된 흑암 구체들의
방사물을 포함하여, 공간의 기본적 에너지의 대부분을
완벽하고도 완전한 통제 안에 두고 있다. 살아있는
실존개체들의 이 집단은 조직화된 공간의 물리적 에너지
거의 전체를 동원하고, 변환시키고, 변화시키고, 조종하고,
보낼 수 있다.

41:2.5 (457.4) 생명은 우주적 에너지의 동원과 변화를 위한
선천적인 능력을 소유한다. 너희는 물질적인 빛 에너지가
식물계의 다채로운 현시활동으로 변환하는 것에서 식물
생명의 활동을 잘 알고 있다. 또한 너희는 이 식물 에너지가
동물 활동들의 현상들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의 일부를 알고
있지만, 힘 지도자들과 물리통제자의 기법에 대해서는
실천적으로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은 우주의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동원하고 변환시키며 방향을 잡고 집중시킬 수 있는 힘을 천부적으로 자질로서 부여받고 있다.

41:2.6 (457.5) 에너지 영역들의 이들 존재들은 살아있는 창조체들의 구성 요소로서 에너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데, 생리적 화학의 권역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다. 그들은 기본적인 물질적 유기체들의 살아있는 에너지들을 위한 물리적 매체들로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체계들의 합성에 따라, 생명의 물리적 예비 행위에 관여하는 경우가 때로 있다. 어떤 면에서 물리통제자들은 보조 마음-영들이 물질적 마음의 영적-이전(以前) 기능들과 관련된 것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에너지의 생명-이전(以前) 현시활동에 관련되어 있다.

41:2.7 (457.6) 힘을 통제하고 에너지 방향을 지도하는 이 지능 창조체들은 그 행성의 물리적 구성과 고안건축물에 따라 각 구체에서 자신들의 기법을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심하게 가열된 태양들과 다른 형태들의 극도로 대전(帶電)된 별들의 지역 영향에 관계하는 물리학자들 그리고 다른 기법 충고자들로 구성된 그들의 각 참모들의

계산과 추론을 충실하게 활용한다. 우주의 거대한 구름 그리고 거대한 흑암 덩어리 그리고 별 먼지의 많은 구름들조차도 함께 간주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 전체는 에너지 조종에서의 실천적인 문제들 속에 관련되어 있다.

41:2.8 (457.7) 진화하는 거주 세계들에 대한 힘-에너지 감독은 주(主)물리통제자의 임무이지만, 유란시아에 있는 모든 잘못된 에너지 작용이 이들 존재들의 책임은 아니다. 그러한 교란 현상들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 일부는 물리적 보호관리자들의 권역과 통제를 벗어난 것들이다. 유란시아는 대단한 에너지들의 계통들에 속하는데, 거대한 물체들의 순환회로 속에 있는 하나의 작은 행성이며, 지역 통제자들은 이 에너지 계통들을 평형 시키려는 노력 속에서 수많은 자기 계층을 이용하는 경우가 때로 있다. 그들은 사타니아의 물리적 순환회로들에 관해서는 상당히 잘 하지만, 강력한 놀라시아덱 흐름들에 대항하여 차단시키는 데에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제 3 장. 우리의 별 연관-동료들

41:3.1 (458.1) 사타니아 안에는 2,000개 이상의 찬란한 태양들이 빛과 에너지를 내뿜고 있으며, 너희 자신의 태양은 평균적인 타오르는 구체이다. 너희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30개 태양들 중에서 세 개만이 더 밝다. 우주 힘 지도자들이 각각의 별들과 그들의 각 체계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분화된 에너지 흐름들을 일으킨다. 이 태양 용광로들은, 우주의 거대한 흑암 물체들과 함께, 물질적 창조들의 에너지 순환회로들을 효력 있게 집중시키고 방향을 정하기 위한 중간지점들로서 힘 중심들 그리고 물리통제자들을 돕는다.

41:3.2 (458.2) 네바돈의 태양들은 다른 우주들의 그것들과 다르지 않다. 모든 태양들, 흑암 섬들, 행성들, 위성들 나아가 유성들까지도 그 물질적 구성이 상당히 동일하다. 이들 태양들은 평균적으로 직경이 1,000,000마일에 달하고, 너희 자신의 태양 동그란 공 존재는 그것보다 약간 작다. 우주 안에서 가장 큰 별인, 별 구름 안타레스는 너희 태양 직경의 450배에 달하며 부피는 6천만 배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들 모든 거대한 태양들을 수용할 수 있는 풍부한 공간이 있다. 그것들은 만일 12개의 오렌지들이 유란시아의 내부에 두루 회전하였더라면 그리고 행성이

속이 텅 빈 공이라면, 오렌지들이 공간 안에서 갖게 되었을 정도에 상당하는 움직임 여유를 갖고 있다.

41:3.3 (458.3) 너무 큰 태양들이 성운 어머니 회전바퀴에서 벗어나면, 그것들은 곧 부서지든지 아니면 2중성(二重星)을 형성한다. 모든 태양들은 비록 그것들이 나중에 과도기로 반(半)액체 상태 속에 존재하게 된다 하더라도 기원적으로는 참으로 기체 상태이다. 너희 태양이 극도의 기체 압력을 가진 이러한 준(準)-액체 상태를 달성하였을 때, 그것은 적도에서 반으로 갈라지기에 충분한 크기가 아니었다, 그런 존재가 2중성 형성의 한 유형이다.

41:3.4 (458.4) 너희 태양의 10분의 1보다 작아질 때, 불타는 이들 구체들은 급속도로 수축되고 압축되며 냉각된다. 그것의 크기가 30배—오히려 실재 물질의 전체 내용물의 30배—이상이 될 때 태양들은 즉시 두 개의 개별 몸체들로 나뉘는데, 새로운 체계들의 중심들이 되든지 아니면 각각의 다른 중력 범위 속에 남아 이중적 별의 한 유형으로서 공동 중심 주변을 회전한다.

41:3.5 (458.5) 오르본톤 안에서 가장 최근의 주요 우주 분출은 특출한 2중성의 폭발이었는데, 이 빛은 서기 1572년에 유란시아에 도달하였다. 이 화염은 너무나 강렬하였기 때문에 환한 대낮에도 그 폭발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41:3.6 (458.6) 모든 별들이 고체 상태는 아니지만, 비교적 오래된 것들 대부분은 그러하다. 붉은 빛을 띤, 희미하게 깜박이는 별들 중 일부는 만일 유란시아에서 무게를 잰다면 어떤 별의 1입방 인치가 6,000파운드에 이를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표현될 수 있는 그것들의 거대한 질량의 중심에서 농도를 획득하였다. 열과 순환 에너지를 잃음으로써 생기는 거대한 압력은 그것들이 이제 전기적 농축의 지위에 근접할 때까지 기본적 물질 단위들의 궤도들을 점점 더 가깝게 함으로써 발생된다. 이러한 냉각 그리고 응축 과정은 극자적 응축의 임계 폭발 지점까지 계속될 것이다.

41:3.7 (459.1) 거대한 태양들 대부분은 비교적 나이가 어리며; 작은 별들 대부분은 오래 된 것이지만, 다 그렇지는 않다. 충돌하는 작은 별들은 매우 어리고 강한 흰 빛과 함께 타오르게 되는데, 젊을 때의 빛이 최초의 붉은 빛 단계에

있는 일은 한 번도 알려진 적이 없다. 매우 어린 태양들과 매우 오래된 태양들은 모두 대개 붉은 빛으로 달아오르며 비친다. 노란 색조는 중간 정도로 젊거나 늙은 시대로 접근하는 것을 나타내지만, 빛나는 흰 빛은 강건하고 확장된 성숙된 일생을 의미한다.

41:3.8 (459.2) 청년기 태양들 모두가 정확하게 고동치는 단계를 지나가지는 않은 반면, 적어도 눈에 띄게 그렇지 않은데, 우주 밖을 바라볼 때 너희는 거대한 호흡 용기가 한 주기를 마치기에 2일에서 7일이 소요되는 비교적 젊은 이 별들 대부분을 관측할 수 있다. 너희 자신의 태양은 그것의 젊은 날들의 강력한 상승용기의 점점 감소하는 유산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그 기간은 이전의 3.5일 파동으로부터 현재는 11.5년 흑점 주기들로 길어졌다.

41:3.9 (459.3) 별의 변수(變數)들은 수많은 기원들을 갖는다. 어떤 2중성들의 경우에 그 조류들은 두 몸체들이 그들의 궤도들을 돌 때 또한 주기적 광선 파동이 있을 때 급격하게 변화하는 거리들에 의해 기인된다. 이 중력 변화들은 규칙적이고 되풀이되는 불꽃 현상을 낳는데, 그 표면에서 에너지-물질의 증가에 의한 운석 흡인이 그 태양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밝기로 급격히 떨어지게 될 비교적 갑작스러운 섬광 현상을 낳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때로는 태양이 줄어든 중력 저항과 일치하는 운석 띠를 흡인하게 될 것이며, 때로는 별 모양의 섬광을 만드는 충돌들이 발생하지만, 그러한 현상들 대부분은 전적으로 내부적 변동에서 기인된다.

41:3.10 (459.4) 변화하는 별들의 한 집단 안에서는 빛 파동 기간이 직접적으로 광도(光度)에 따라 좌우되며, 이 사실에 대한 지식으로 인하여 천문학자들은 그러한 태양들을 우주 등대들로 활용하거나 또는 멀리 있는 별 성단들에 대한 더 앞서는 탐구를 위한 정확한 측량 지점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기법으로 인하여, 백만 광년에 이르기까지의 별 간격을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공간 측정의 더 나은 방법들과 개선된 망원경 기법이 언젠가는 오르본톤 초우주의 10개 주요 부분들을 보다 충만하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광대한 구역들 중 적어도 8개에 대해서는 거대하고 그런 대로 균형이 잡힌 별 성단들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제 4 장. 태양 밀도(密度)

41:4.1 (459.5) 너희의 태양의 질량은, 그것이 약 2 곱하기 10의 27승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너희 물리학자들의 측정치보다 약간 더 크다. 그것은 현재 가장 농축된 별과 가장 확산된 별의 중간에 존재하고 있는데, 물의 밀도보다 약 1.5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너희의 태양은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며—기체 상태이다—이것은 기체 상태의 물체가 어떻게 이러한 밀도 그리고 심지어 그보다 더 큰 밀도를 가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다.

41:4.2 (459.6) 기체, 액체 그리고 고체 상태들은 원자-분자 관계들의 문제이지만, 밀도는 공간과 질량의 관계이다. 밀도는 공간 속에서 물체의 양에 따라 직접적으로 변화하고 물체 속의 공간 부피와는 반대로 변화하는데, 공간은 물체의 중앙 핵심과 이 중심들을 도는 입자들 사이의 공간이며 그러한 물질 입자들 속의 공간이다.

41:4.3 (459.7) 식어 가는 별들은 물리적으로 기체상태일 수 있는 동시에 크게 농축되어 있을 수 있다. 너희는 태양의 초(超)기체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겠지만, 이것들과 다른 비정상적 물질 형태들이 어떻게 고체가 아닌

태양들마저도 쇠와 비슷한 밀도—유란시아의 것과 거의 동일한—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전히 높게 가열된 기체 상태에 있으면서 태양들로서 계속 기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농축된 이들 초(超)기체들 속의 원자들은 유난히 크기가 작으며; 그것들은 약간의 전자들을 갖는다. 그러한 태양들은 또한 그들의 극자적 자유 에너지 비축량을 크게 상실하였다.

41:4.4 (460.1) 너희의 태양과 거의 같은 질량으로 탄생된, 너희와 가까이에 있는 태양들 중 하나는, 현재 거의 유란시아 크기에 가까울 정도로 수축되었는데, 너희 태양보다 40,000배에 해당하는 밀도가 되어가고 있다. 이 뜨거운-차가운 기체상태의-고체상태의 무게는 1입방 인치당 1톤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태양은 희미한 붉은 빛의 백열광, 죽어 가는 빛의 제왕의 노쇠한 희미한 빛과 함께 여전히 빛나고 있다.

41:4.5 (460.2) 그러나, 대부분의 태양들이 그렇게 밀도가 큰 것은 아니다. 너희들 가까이에 있는 것들 중 하나는 해면 대기와 아주 똑같은 밀도를 갖고 있다. 만약에 너희가 이 태양 내부에 있었다면, 너희는 아무런 차이도 느끼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온도가 허락한다면, 너희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태양들 대부분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이 세상의 거실 안에서 느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41:4.6 (460.3) 오르본톤 안에서 가장 큰 것 중의 하나인 베룬티아라는 거대한 태양은 유란시아 대기의 밀도의 1,000분의 1에 불과하다. 그것이 너희 대기와 비슷하고 심하게 가열된 성질이 아니었다면, 인간 존재들이 만일 그 속에 또는 그 위에 있게 될 때 곧 숨이 막혔을 것이다.

41:4.7 (460.4) 오르본톤에 있는 다른 거대한 태양들은 현재 3,000도보다 약간 낮은 온도를 갖고 있다. 그 직경은 3억 마일보다 크다—너희 태양과 지구의 현재 궤도를 수용할만한 거대한 공간. 그렇지만, 너희 태양보다 4천만 배가 넘는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그 질량은 오직 30배에 지나지 않는다. 거대한 이들 태양들은 하나가 다른 것에 미칠 정도로 확장하는 테두리를 가지고 있다.

제 5 장. 태양 방사

41:5.1 (460.5) 우주에 있는 태양들이 매우 조밀하지는 않다는 사실이 탈출하는 빛-에너지들의 안정된 흐름에 의해

증명된다. 밀도가 과도하게 크다면 빛-에너지 압력이 폭발점에 이를 때까지 불투명에 의해 빛을 억압시킬 것이다. 태양 안에는 수백만 마일을 떨어져 있는 먼 행성들에게 우주를 통과하여 에너지와 빛을 전달하고 가열시킬 정도의 에너지 흐름을 발사하게 하는 거대한 빛과 기체 압력이 존재한다. 유란시아 밀도에 해당하는 15피트 두께의 표면만 되더라도, 원자 핵 분열에서 기인되는 축적된 에너지의 증가되는 내부 압력이 거대한 외부 폭발로 중력을 압도하게 될 때까지 태양으로부터 모든 X선들과 빛-에너지들이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41:5.2 (460.6) 추진력이 있는 기체들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빛은 불투명한 차단벽에 의해 높은 온도에 갇히게 될 때 큰 폭발력을 갖는다. 빛은 실체이다. 너희의 세계에서 에너지와 힘에게 가치를 부여하듯이, 태양광은 일파운드당 백만 불에 해당하는 경제성이 있을 것이다.

41:5.3 (460.7) 너희 태양의 내부는 거대한 X-선 생성소이다. 태양들은 이러한 강력한 힘을 끊임없이 퍼붓는 내부로부터의 도움을 받는다.

41:5.4 (460.8) 평균적인 태양의 중심점으로부터 태양 표면에
이르기까지 X-선으로 자극된 전자가 고유의 방법으로
활동하는 데에는 약 500,000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때부터 그것은 우주 모험을 시작하여, 거주민이 사는
행성을 따뜻하게 하거나, 운석 속에 흡수되거나, 원자의
탄생에 참여하거나, 공간 속의 심하게 대전(帶電)된 흑암
섬에 흡수되거나, 또는 그것이 기원된 것과 비슷한 태양의
표면 속으로 들어가 버림으로써 우주 비행을 끝내게 된다.

41:5.5 (461.1) 태양 내부의 X 선들은 심하게 가열되고 진동하는
전자들에게 공간을 통과하여, 일단의 끼어드는 물질의
억류하는 영향들을 지나치고, 다양한 중력 끌어당김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체계들의 먼 구체들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을 운반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로 대전시킨다.
태양의 중력 속박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속도를 갖는
엄청난 에너지는 태양 광선이 상당히 큰 물질 질량을
만나게 될 때까지 줄어들지 않는 속도로 여행하게 될 것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 그 후에는 그것이 다른 에너지들을
배출하면서 급속도로 열로 변환된다.

41:5.6 (461.2) 에너지는, 빛이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들로써든지, 우주를 통과해 날아감에 있어서 직진하여 움직인다. 물질 실존의 실재 입자들은 연발하는 형태로 공간을 지나간다. 그것들은 우월한 기세에 의해 활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파라다이스 섬의 순환-중력 현존과 물질적 질량 속에 선재하는 직선-중력 흡인력에 계속 복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똑바르고 연속적인 선 또는 행렬 속에서 움직인다.

41:5.7 (461.3) 태양 에너지는 마치 파동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공존하는 영향 그리고 다양한 영향의 활동에 기인된다. 조직화된 에너지의 주어진 형태는 파동이 아니라 직선으로 진행한다. 기세-에너지의 제2 또는 제3 형태의 현존은 파도치는 형태로 움직이는 것처럼 나타나도록 관측되는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강력한 바람과 함께 동반되는 앞이 안 보이는 폭풍우 속에서 빗방울이 어떤 때에는 평면 속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파도를 치며 내리는 것과 똑같다. 빗방울들은 단절되지 않고 진행하는 직선의 형태로 떨어지지만, 바람의 작용이 빗방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기에 평면의 물처럼 그리고 파도처럼 보이게 한다.

41:5.8 (461.4) 너희 지역우주 공간 영역들 속에 현존하는, 특정한 2차 에너지와 발견되지 않은 다른 에너지의 활동은 일정한 길이와 무게를 갖는 극미한 부분들로 나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파도치는 현상을 연출하는 것처럼 보이는 태양-광선 발산과 같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고려한다면, 그것은 일어나고 있는 일과 똑같다. 너희는 네바돈의 공간 영역들 안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공간-기세들 그리고 태양 에너지들의 상호작용과 상호관계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너희가 획득하기 전에는 빛의 행태에 대해 더 나은 납득을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너희가 현재 갖고 있는 혼동은, 그것이 주(主)우주 의 개인적 그리고 비(非)개인적 통제의 상호-연관된 활동들—공동 행위자와 분별불가 절대자의 현존, 활동, 조화-협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미완성된 파악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제 6 장. 칼슘—우주의 미아(迷兒)

41:6.1 (461.5) 분광(分光) 현상을 해독함에 있어서, 공간이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공간을 지나가는 그 빛은 조직화된 모든 공간 속에서 순환하는 에너지와 물질의 다양한 형태들에 의해 때로 약간씩 변형된다. 너희가 태양의 분광현상에서 알지 못하는

물체가 보이는 것은 산산 조각난 형태로 공간에 두루 떠다니고 있는, 태양 요소 간 전투의 맹렬한 충돌에서 나온 원자 희생자인, 잘 알려진 요소들의 변형 때문이다. 공간은 이러한 떠돌아다니는 낙오자들, 특별히 나트륨과 칼슘으로 가득 차 있다.

41:6.2 (461.6) 사실, 칼슘은 오르본톤에 두루 공간의 물질-침투의 주된 요소이다. 우리의 전체 초우주는 미세하게 분쇄된 암석으로 뿌려져 있다. 암석은 행성들과 공간 구체에게는 글자 그대로 기본적인 건축 물질이다. 거대한 공간 덮개인 조화우주 구름은 대부분이 칼슘의 변형된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암석 원자는 원소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수명이 긴 원소 중 하나이다. 그것은 태양에서의 이온화현상—분열—을 견디어낼 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X 선이 강타하고 높은 태양 온도에 의해 산산조각이 난 이후라 하더라도 연관하는 정체성을 끈질기게 가진다. 칼슘은 좀 더 통상적인 형태의 모든 물질을 능가하는 개별성과 긴 수명을 소유한다.

41:6.3 (462.1) 너희 물리학자들이 짐작한 바와 같이, 태양에서 나온 칼슘의 이 손상된 파편들은 가지각색의 거리를 글자

그대로 빛을 타고 가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공간에 두루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이 엄청나게 조성되어진다. 나트륨 원자 또한 특정한 변형아래에서는 빛과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능력이 있다. 칼슘의 공로가 훨씬 더 놀랄만한 이유는 이 원소가 나트륨보다 거의 두 배의 질량을 갖기 때문이다. 칼슘이 지역 공간-침투를 이룬 것은, 변경된 형태로서 밖으로 뺀 태양광선에 말 그대로 올라타, 태양광구로부터 벗어나는 사실 때문이다. 태양 원소들 전체 중에서 칼슘은 그것의 상대적 크기—20개의 순환전자들을 포함하는—에도 불구하고 태양 내부로부터 공간의 영역들로 탈출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성공적인 것이다. 이것이 어째서 기체상태의 암석 표면인 칼슘 층이 태양에서 6,000마일 두께로 있는 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보다 가벼운 19개의 원소들과 보다 무거운 수많은 원소들이 그 아래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다.

41:6.4 (462.2) 칼슘은 태양 온도에서 활동적이고 변화하기 쉽다. 석영 원자는 두 개의 외부 전자 순환회로 속에서 회전이 빠르고 느슨하게 붙어있는 두 개의 전자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은 매우 근접되어 있다. 원자 투쟁의 초기에서, 외부

전자를 잃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19번째 전자가 전자 회전의 19번째와 20번째 순환회로 사이를 왔다 갔다 던지고 받는 노련이 넘치는 행동에 들어가게 된다. 이 19번째 전자를 그 자체적 궤도와 그것의 잃어버린 동반자의 궤도 사이를 매초마다 25,000번씩 왔다 갔다 하도록 내던져짐으로써, 불구가 된 석영 원자는 중력을 부분적으로 무시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창발하는 빛과 에너지의 흐름, 태양광선을 성공적으로 해방과 모험에 오르게 한다. 이 칼슘 원자는 앞쪽방향의 추진을 만드는 교대로 발생하는 경련, 매초 25,000번 태양광선을 붙잡았다가 놓아주는 것에 의하여 이 칼슘 원자는 움직인다. 그리고 이것은 석영이 왜 공간 세계들의 주요 요소인지를 설명해 준다. 칼슘은 최고의 숙련자인 태양-감옥 탈옥수이다.

41:6.5 (462.3) 재주를 부리는 이 칼슘 전자의 민첩성은, 고열-X-선 태양 에너지에 의해 보다 높은 궤도의 순환계로 던져질 때, 그것이 1초의 백만분의 1 동안만 궤도에 남아 있다는 사실에 의해 표시되지만; 원자핵의 전자-중력이 그것을 원래 궤도 안으로 잡아당기기 전에 그것은 원자 중심을 백만 번 회전할 수 있다.

41:6.6 (462.4) 너희 태양은 많은 양의 칼슘을 내뿜어 왔는데, 태양계의 형성과 관련된 급작스러운 폭발이 있는 동안 거대한 양을 방출하였다. 태양 칼슘의 대부분은 현재 태양의 외부 껍질 속에 있다.

41:6.7 (462.5) 분광(分光) 분석은 오직 태양-표면 조직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예를 들자면: 태양 분광은 많은 철(鐵) 계통을 나타내지만, 철은 태양에 있어서 주요 원소가 아니다. 이 현상은 6,000도를 약간 밑도는 태양 표면의 현재 온도에서 거의 전적으로 기인된 것이며, 이 온도는 철 분광 결과를 나타내기에 아주 적합하다.

제 7 장. 태양 에너지의 근원

41:7.1 (463.1) 심지어는 너희 태양도 포함하여, 많은 태양들의 내부 온도는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것보다 훨씬 높다. 태양의 내부에는 실천적으로 원자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그러한 높은 온도에 토착적인 강한 X-선 충격에 의해 다소 분쇄되어 있다. 태양의 비교적 바깥층들에서 무슨 물질적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느냐에 상관없이, 내부에 있는 그것들은 파괴적인 X-선들의 분열

활동에 의해 매우 비슷하게 된다. X-선은 원자 실존을 평등하게 하는 위대한 도구이다.

41:7.2 (463.2) 너희 태양의 표면 온도는 거의 6,000도에 이르지만, 그것은 내부로 들어갈수록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중앙 지점에서는 약 3,500만 도에 이르는 믿을 수 없는 고온을 갖는다. (이 모든 온도들은 너희가 재는 화씨온도에 기준한 것이다.)

41:7.3 (463.3)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거대한 에너지 소모를 암시하는 것이며, 태양 에너지의 근원들을 그 중요성에 따라 순서대로 이름을 붙이면 다음과 같다:

41:7.4 (463.4) 1. 원자들 그리고 결국에는 전자들의 절멸(絶滅).

41:7.5 (463.5) 2. 원소들의 변형, 그리하여 자유롭게 된 방사성을 갖는 에너지 집단을 포함하여.

41:7.6 (463.6) 3. 특정한 우주적 공간-에너지들의 축적과 전송.

41:7.7 (463.7) 4. 타오르는 태양들 속으로 계속 쏟아져 들어가는 우주 물질 그리고 유성들.

41:7.8 (463.8) 5. 태양 수축; 우주 물질에 의해 공급되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는 더 큰 에너지와 열을 내는 태양의 냉각과 그에 따른 수축.

41:7.9 (463.9) 6. 특정한 순회하는 힘을 발광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고온의 중력 활동.

41:7.10 (463.10) 7. 태양계 밖에서 기원된 다른 에너지들을 포함하여, 태양을 떠난 이후에 다시 그 속으로 끌어들여지는 다시 사로잡힌 빛과 다른 물질.

41:7.11 (463.11) 태양들을 감싸고, 열 감소를 안정시키든지 아니면 열 손실의 위험한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도록 활동하는 뜨거운 (때로는 수백만 도에 이르는) 기체로 된 규제하는 막이 존재한다. 태양이 활동을 하는 동안 3,500만 도에 이르는 그 내부 온도는 외부 온도의 점진적인 하강에 거의 상관없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41:7.12 (463.12) 너희는 전자적 비등점으로써 특정한 중력 압력과 관계적-연합하여 3,500만 도를 상상해보려고 시도할 수있다. 그러한 압력 하에서는 그리고 그러한 온도에서는 모든 원자들이 퇴화하고 그것들의 전자 성분들 그리고

다른 원래 성분들로 분열된다; 전자 그리고 또 다른 극자의 관계적-연합 조차도 분열될 수 있다, 그러나 태양은 극자를 퇴화시킬 수는 없다.

41:7.13 (463.13) 이 태양 온도가 극자들과 전자들을 크게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적어도 후자의 그러한 것들이 이들 조건하에서 그들의 실존이 유지되는 것이 그렇게 계속되도록 한다. 너희는 보통의 물 한 방울이 10억조(億兆)를 넘는 원자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멈추어 생각할 때, 극자 활동과 전자 활동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서 높은 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것이다. 이것은 100마력으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가한 것보다 많은 에너지이다. 태양 체계에 의해 현재 매초마다 뿜어져 나오는 전체 열은 단 1초 만에 유란시아의 바닷물 전체를 모두 끓는 온도에 이르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41:7.14 (464.1) 우주 에너지의 주요 흐름들 중에서 직접적인 계통들 속에 기능하는 태양들만이 언제까지나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러한 태양 불꽃은 무기한으로 타오르는데, 공간-기세와 유사 순환 에너지를 받아들임으로써 그것들의 물질적 손실을 보충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재충전하는 이 주요 계통들로부터 멀리 옮겨진 별들은 에너지 고갈—점차적으로 식어지고 결국에는 타버리는—을 겪게 되어 있다.

41:7.15 (464.2) 그러한 죽은 또는 죽어 가는 태양들은 충돌 효과에 의해 다시 젊어지거나 우주의 빛을 내지 않는 어떤 에너지 섬들에 의해 또는 보다 작은 근처의 태양들 또는 체계들의 중력-강탈을 통하여 재충전 받을 수 있다. 죽은 태양들 대부분은 이러한 또는 다른 진화적 방법들에 의해 원기를 회복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 중에 그렇게 결국에는 재충전되지 못한 것들은 중력 응축이 에너지 압력의 극자적 응축의 결정적 차원에 도달할 때 거대한 폭발을 일으킴으로써 분열되게 되어 있다. 사라지는 그러한 태양들은 그렇게 해서 아주 희귀한 형태의 에너지가 되는데, 보다 더 순조로운 상태에 있는 다른 태양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기에 감탄할 정도로 적합하다.

제 8 장. 태양 에너지 반응

41:8.1 (464.3) 공간-에너지 경로들 속에서 돌고 있는 그 태양들에게 있어서, 태양 에너지는 다양한 복합적 핵-반응

고리들에 의해 자유롭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수소-탄소-헬륨 반응이다. 이 변형 작용에 있어서, 탄소는 하나의 에너지 축매로서 작용하는데 왜냐하면 수소를 헬륨으로 전환시키는 이 과정에 의해 실재적으로 그것이 결코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높은 온도의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수소가 탄소 원자핵들 속으로 뚫고 들어간다. 탄소는 그러한 양성자들을 네 개 이상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포화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새로운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양성자들을 방출한다. 이러한 반응 속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수소 입자들이 헬륨 원자로 나오게 된다.

41:8.2 (464.4) 수소 함유량의 저하가 태양의 밝기를 증가시킨다. 타버릴 운명에 있는 태양들 안에서는, 그 밝기가 수소 연소 지점에 도달한다. 이러한 지점에 이르게 되면, 광도(光度)는 중력 응축의 합성 과정에 의해 유지된다. 결국에는 그러한 별은 소위 하얀 난쟁이 별이라고 불리는 매우 응축된 구체가 될 것이다.

41:8.3 (464.5) 큰 태양들—작은 순환계의 성운—의 경우에는 수소가 고갈되고 중력 응축이 일어날 때, 만일 그러한

몸체가 외부 기체 영역들을 지탱할 정도로 내부 압력을 유지시킬 만큼 충분히 불투명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때 갑작스러운 붕괴 현상이 발생한다. 전기적 잠재가 결여된 엄청난 양의 미세 입자들이 중력-전기 변화로 인하여 발생되며, 그러한 입자들은 태양 내부로부터 즉시 탈출하게 되는데, 그리하여 수일 내에 거대한 태양이 붕괴되게 된다. 약 50여 년 전에 안드로메다 성운의 거대한 새로운 별이 붕괴되게 된 것은 이러한 “탈출하는 입자들”의 이주 때문이었다. 이 거대한 별의 붕괴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40분 만에 이루어졌다.

41:8.4 (464.6) 일반적으로, 물질의 거대한 압출(壓出)은 식어가는 남은 태양이 성운 기체의 광대한 구름처럼 존재할 때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게자리 성운과 같은 여러 형태의 불규칙적인 성운들이 기원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약 900년 전에 기원되었으며, 불규칙적인 이 성운 덩어리의 중심 근처에 홀로 있는 별로서 어머니 구체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제 9 장. 태양 안정성

41:9.1 (465.1)

비교적 큰 태양들은 강력한 X 선들의 도움에 의해서만 빛이 탈출하는 자신의 전자들에 대해 그러한 중력 통제를 유지한다. 조력자인 이 광선들은 모든 우주를 관통하며 에너지의 기본적이고 극자적인 관계적-연합에 관여한다. 초기 시대의 태양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에너지 손실은, 최고 온도—3,500만 도가 넘는—에 도달한 다음에는 극자 누출만큼 빛 탈출에 기인되지 않는다. 이 극자 에너지들은 우주 속으로 탈출하여 청년기 태양 시절 동안, 진실 그대로의 태양 광풍으로서 전기적 관계적-연합과 에너지의 물질화의 모험에 참여한다.

41:9.2 (465.2)

원자들과 전자들은 중력의 지배를 받는다. 극자들은 지역 중력, 물질 인력(引力)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절대적 또는 파라다이스 중력, 우주들의 우주의 보편적이고 영원한 순환계의 경향인 진동에 충분히 지배를 받는다. 극자 에너지는 가까이에 있거나 멀리에 있는 물질 덩어리들의 1차적인 또는 직접적인 중력 끌어당김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멀리서 일어나는 창조의 거대한 타원 순환회로에 그대로 맞추어서 계속 돈다.

41:9.3 (465.3)

너희 자신의 태양 중심은 매년 거의 1,000억 톤에 해당하는 실재적인 물질을 방출하는 반면, 거대한 태양들은 그들의 초기 성장 기간, 처음 10억 년 동안 경이적인 비율로 물질을 방출한다. 태양의 생명은 내부 온도가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에 안정이 되며, 원자 구성요소 에너지들이 방출되기 시작한다. 비교적 큰 태양들이 발작적인 파동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임계점에서 이다.

41:9.4 (465.4)

태양 안정성은 중력-열 대립—상상할 수 없는 온도에 의해 평형이 이룩된 거대한 압력들—사이의 균형에 전적으로 의존된다. 태양들의 내부 기체 탄력성이 여러 가지 물질들로 구성된 겹으로 된 층들을 지탱하며, 중력과 열이 평형을 이룰 때, 외부 물질들의 무게가 아래에 있는 내부 기체들의 온도 압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많은 젊은 별들 가운데에는 계속된 중력 응축이 계속-증가하는 내부 온도를 산출하며, 초월적 기체 폭풍의 내부 X-선이 너무 강력하게 되어서, 원심력과 관련된 활동과 관련하여, 태양은 그 외부 층들을 공중으로 뿜어내기 시작하며, 그리하여 중력과 열 사이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다.

41:9.5 (465.5) 너희들 자신의 태양은 그 팽창과 응축 순환, 비교적 젊은 별들 대부분의 거대한 진동을 가져오는 소동(騷動)들 사이에서 상대적인 평형을 오래 전부터 이루어 왔다. 너희의 태양의 나이는 현재 60억 년을 지나고 있다. 그것은 지금 가장 경제적인 기간을 통과하며 활동하고 있다. 그것은 250억 년 이상 동안 현재의 효율로 빛을 발할 것이다. 그것은 아마 초기 기능과 안정된 기능의 병합 기간이 계속되는 만큼 쇠퇴하는, 부분적으로 유효한 기간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제 10 장. 거주 세계들의 기원

41:10.1 (465.6) 최대 진동 상태에 있거나 그에 접근된 가변적인 별들 중 어떤 것들은 종속되는 체계들을 기원시키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들 중 대부분은 결국에는 너희들 자신의 태양과 그것에 소속된 회전하는 행성들과 매우 흡사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태양은 거대한 앙고나 체계가 가까이 회전하며 들어올 때와 같은 크게 진동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태양의 외부 표면이 진실 그대로의 물질 흐름—연속적인 판(板)들—을 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가장 근접된 동격(同格)이 이루어질 때, 태양 응집력의 한계에 도달되고, 태양 체계의 조상인

물질의 거대한 정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점점 더 맹렬하게 되었다. 비슷한 환경 속에서, 끌어당기는 몸체가 가깝게 접근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어떤 태양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체 행성들이 빠져 나온다. 어떤 독특한 구름처럼 묶인 세계들로부터 발생된 이 주요 압출 현상은 목성 그리고 토성과 비슷한 구체를 형성한다.

41:10.2 (466.1) 아무튼 태양 체계들의 대부분은 너희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게 기원되었으며, 이것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중력의 기법에 의해 산출된 그것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세계가 건설되는 기법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중력은 항상 태양 체계 형태의 창조를 이룩 한다; 그것은 행성들과 위성들과 하위위성들 그리고 유성(遊星)들을 갖는 중앙에 있는 하나의 태양 또는 흑암 섬이다.

41:10.3 (466.2) 개별 세계들의 물리적 양상은 기원된 방법, 천문학적 상황, 그리고 물리적 환경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나이, 크기, 회전 비율, 우주를 날아가는 속도 역시 결정 요소들이 된다. 기체-응축으로 되는 세계는 물론 고체-증가로 되는 세계 역시 산 모양을 갖는 것이 특징이며, 너무

작지 않은 초기 삶 동안 물과 공기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녹아서 분열된 세계와 충돌하여 생긴 세계들의 경우 넓은 산맥이 없는 때도 있다.

41:10.4 (466.3) 이러한 모든 새로운 세계들의 초기 시대 동안,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거대한 물리적 격변이 그것들 모두의 특징이다; 특별히 이것은 기체-응축 구체들에게 적용되는데, 세계들은 특정한 개별적 태양들의 초기 응축과 수축에서 벗어날 때 남겨진 거대한 성운 고리에서 발생된다. 유란시아처럼 이원적(二元的)인 기원을 갖는 행성들은 비교적 적은 격변과 폭풍우의 어린 시절을 통과한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의 세계는 화산과 지진과 홍수 그리고 엄청난 폭풍우를 특징으로 하는 거대한 변혁의 초기 위상을 체험하였다.

41:10.5 (466.4) 유란시아는 사타니아의 외곽에서 비교적 고립된 상태에 있는데, 너희의 태양 체계는 하나의 예외 현상으로 예루셈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반면 사타니아 자체는 놀라시아텍의 가장 외곽에 있는 체계에 근접해 있으며, 이 별자리는 현재 네바돈의 외부 주변을 지나가고 있다. 미가엘의 증여로 인해 너희 행성이 큰 우주적 관심과

영예의 지위를 얻기 전까지 너희는 정말로 모든 창조
중에서 가장 작은 것들 중의 하나였다. 종종 제일 나중에
첫째가 된다, 한편으로 정말로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된다.

41:10.6 (466.5) [네바돈 힘 중심들의 우두머리와 협력하는
천사장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42 편 에너지-마음과 물질

42:0.1 (467.1) 에너지가 모든 실존의 기초라는 면에서 볼 때
우주의 기반은 물질로 되어있으며, 순수한 에너지는 우주
아버지에 의해 통제된다. 기세. 에너지는 우주 절대자의
실존과 현존을 명시하고 실증하는 영속하는 기념비로 서
있는 하나의 사실이다. 파라다이스 현존들로 부터 나오는
광대한 흐름의 이 에너지는 쇠퇴한 적이 결코 없고 실패한
적이 없으며; 무한의 지탱에서 결코 깨진 적이 전혀 없었다.

42:0.2 (467.2) 우주 에너지의 조종은 우주 아버지의 개인적
의지와 모든-지혜의 명령에 항상 따르고 있다. 현시되는
힘과 순환하는 에너지에 대한 이 개인적 통제는 영원한
아들의 조화-협동하는 활동과 결정에 의해서, 또한
마찬가지로 공동 행위자에 의해 실행되는 아들과

아버지의 연합된 목적에 의해서 변경된다. 이들 신성한 존재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활동 한다; 또한 그들은 우주들의 우주에서 영원하고 신성한 목적을 다양하게 각각 표현하는 거의 무제한적 숫자의 종속들의 개인과 힘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렇게 신성한 힘의 기능적이고도 일시적인 변경이나 변형들이, 모든 기세-에너지가 모든 것들의 중심에 계시는 개인적 하느님의 궁극적 통제 아래에 있다는 선언적 진리를 조금도 약화시키지 않는다.

제 1 장. 파라다이스 기세와 에너지

^{42:1.1 (467.3)} 우주의 기반은 물질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본질은 영이다. 그리고 영들의 아버지는 또한 우주들의 조상이기도 하다; 기원적 아들의 영원한 아버지는 또한 기원적 원형틀, 파라다이스 섬의 영원-근원이다.

^{42:1.2 (467.4)} 물질—에너지—는, 우주 아버지 안에서 선천적인 것처럼, 하나의 우주 현상이며 그러면서 동일한 조화우주 실체의 다양한 현시활동이다. “그의 안에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 물질은 선천적 에너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고 자아-억제된 힘들을 현시하기 위하여 출현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물리적 현상 속에 고려되는 에너지들 속에 포함된 중력 계통들은 파라다이스로부터 유래되고 파라다이스에 의존한다. 에너지로부터 나온 최초의 측정 가능한 물질, 극자는 파라다이스를 자신의 핵으로 삼는다.

42:1.3 (467.5) 물질 안에는 타고난 그리고 우주 공간 안에 제시되어 있는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 형태가 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발견될 때, 물리학자들은 거의 최소한 물질의 신비는 해결하였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창조자에게 한 걸음 더 접근하게 된다; 그렇게 그들은 신성한 기법을 한 위상 더 정복하게 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도 그들이 하느님을 발견한 것은 아니며, 뿐만 아니라 파라다이스의 조화우주 기법과 우주 아버지의 동기부여의 목적과 동떨어져서 자연법칙의 작용 또는 물질의 실존이 규명되는 것이 아니다.

42:1.4 (468.1) 훨씬 더 많은 진보와 발견들이 있는 다음, 유란시아가 현재의 지식과 비교하여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더 향상한 후에, 물질의 전기적 단위들의 에너지 공전의 통제를 그들의 물리적 현시활동들을 변경시키는 정도까지 확대하도록 너희가 획득한다 해도,—설사 모든

가능한 진보가 있다하여도, 과학자들은 물체의 원자 하나를 창조하거나 또는 한 섬광의 에너지를 기원시키거나 또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물질에 더 하거나 할 힘은 언제까지나 없을 것이다.

42:1.5 (468.2) 에너지의 창조와 생명의 증여는 우주 아버지와 그의 연관 동료 창조자 개인성들의 특권이다. 에너지와 생명의 강은 신(神)들로부터 계속하여 솟아나오며, 파라다이스 기세의 우주적이고 연합된 물줄기는 모든 공간으로 나아간다. 이 신성한 에너지는 모든 창조에 가득 퍼진다. 기세 조직자들이 공간-기세에서의 그러한 변화들을 개시하고 그리고 그러한 수정들을 실시하여 에너지로 결국 생겨나게 한다; 힘 지도자들이 에너지를 물질로 변질시킨다; 이렇게 하여 물질세계들이 탄생된다. 생명운반자들은 죽어있는 물질에서 우리가 생명, 곧 물질 생명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과정들을 개시한다.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은 마찬가지로 물질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과도기 영역에서 두루 수행한다. 더욱 높은 영 창조자들은 에너지의 신성한 형태들에서 비슷한 과정을 착수하고, 그리고 지적 생명의 더욱 높은 영 형태들이 뒤따라 생긴다.

42:1.6 (468.3) 에너지는 파라다이스로부터 나와서, 신성한 계층에 맞추어 빔어진다. 에너지—순수 에너지—는 신성한 조직체의 본성을 이룬다; 세 하느님들이 우주들의 우주의 본부에서 기능하듯이, 하나 속에 포용된 세 하느님의 모습에 맞추어 빔어진다. 그리고 모든 기세는 파라다이스로 순환되는데, 파라다이스 현존들로부터 나와서 그리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그것은 원인 없는 원인—우주 아버지의 본질적인 현시활동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이는,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42:1.7 (468.4) 자아-실존하는 신(神)으로부터 나온 기세는 그 자체로서 언제나 실존한다. 기세-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다; 무한자의 이러한 현시활동들은 무제한적 변형과 끝없는 변환 그리고 영원한 변질을 겪어야만 될지도 모르지만; 어떤 의미나 정도에서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범위까지 이르더라도, 그들은 소멸되거나 또는 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에너지가 무한자로부터 나왔다 하더라도 무한하게 현시되지는 않는다; 현재 이해되는 주(主)우주에 바깥쪽 한계가 있다.

42:1.8 (468.5) 에너지는 영원하지만 무한하지는 않는다; 모두-포용하는 무한성의 장악에 언제나 응답한다. 기세와 에너지는 언제까지나 계속된다; 파라다이스로부터 퍼져나가지만, 정해진 순환회로를 완성하기까지 수없이 긴 세월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간다. 파라다이스 신(神)으로부터 기원된 것은 파라다이스를 행선지로 하거나 신(神) 운명을 가질 뿐이다.

42:1.9 (468.6) 이 모든 것은 우주들의 우주가 원형을 이루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계층적으로 멀리-퍼져 있다는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해 준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지점에서 에너지가 고갈되는 증거가 곧 나타날 것이다. 모든 법칙, 조직체, 관리-행정, 그리고 우주 탐험가들의 증언—이 모든 것이 무한한 하느님의 실존에게로 집중되고 있지만, 하지만 아직은 하나의 유한한 우주로서, 끝없는 실존의 순환성이고, 거의 한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성과 대비할 때 유한하다.

제 2 장. 우주의 비(非)영적 에너지 체계 (물리적 에너지들)

42:2.1 (469.1) 영어 단어에서 기세와 에너지의 다양한—물리적, 마음적, 또는 영적—차원들을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타낼 만한 적당한 말을 찾기가 정말로 어렵다. 이 얘기들은 기세, 에너지, 힘에 대하여 너희가 받아들이는 정의(定意)를 도무지 따를 수 없다. 언어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는 복합적 의미에서 이들 용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 예를 들자면, 에너지라는 말은 현상적 움직임, 활동, 그리고 잠재의 모든 위상과 형태를 나타내는 데 쓰이며 한편, 기세는 중력이전, 힘은 중력이후에 있는 에너지의 상태에 적용된다.

42:2.2 (469.2) 아무튼, 나는 조화우주 기세, 창발에너지, 그리고 우주 힘—물리적 에너지—으로 나뉘는 다음과 같은 구분을 채택하도록 권함으로써 개념적인 혼란을 줄여보려고 노력해 본다:

42:2.3 (469.3) 1. 공간 잠재력. 이것은 분별불가 절대자의 의심할 수 없는 자유 공간 현존이다. 이 개념의 확장이 분별불가 절대자의 기능적 전체성(全體性)안에 선천적인 우주 기세-공간 잠재를 암시하고, 한편으로 이 개념이 내포하는 것은 결코-시작됨이 없고, 결코-끝남이 없는, 결코-움직임이 없고, 결코-변함이 없는 파라다이스 섬으로부터 영원의

방법으로 방사된, 조화우주 실체—우주들—의 전체성을 의미한다.

42:2.4 (469.4) 파라다이스의 아래쪽의 토착적인 현상들은 아마 절대 기세 현존 그리고 행위에 대한 세 지대들을 포용하며: 아마도 분별불가 절대자의 지레받침 지대, 파라다이스 섬 자체의 지대 그리고 어떤 미(未)-정체성확인 평등화와 평형화 대리자 또는 기능들의 조종하는 지대를 포용할 것이다. 이들 세 동심원 지대들은 조화우주 실체의 파라다이스 주기의 중심체들이다.

42:2.5 (469.5) 공간 잠재력은 실체-이전(以前)이다; 그것은 분별불가 절대자의 권역이고 그리고 우주 아버지의 개인적 장악에만 응답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1차 주(主)기세조직자들의 현존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42:2.6 (469.6) 유버사에서는 공간 잠재력이 절대소(絕對素)로 불린다.

42:2.7 (469.7) 2. 원초(원초)기세. 이것은 공간 잠재력에서의 최초 기본 변화를 대표하며 분별불가 절대자의 하부

파라다이스 기능들 중 하나일 수도 있다. 하부 파라다이스로부터 나오는 공간 현존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부터 어떤 방법에 의해 변경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한 모든 관계들과 상관없이, 공간 잠재력의 널리 인지된 원초(원초)기세로의 변형은 살아있는 파라다이스 기세조직자들의 긴장-현존이 시원적으로 차별을 일으키는 기능이다.

42:2.8 (469.8) 수동적이고 잠재적인 기세는 1차 결국 생겨난 주(主)기세조직자들의 공간 현존에 의해 충분하게 제공된 저항에 응답하면서 활동적이고 원초적이 되어간다. 기세는 이제, 분별불가 절대자의 배타적 권역으로부터 나와서, 여러 겹의 반응 권역—행동의 하느님에 의해 창시되는 어떤 시원적 움직임과 그리고 그 위에 우주 절대자로부터 발산되어 나오는 어떤 보상하는 움직임에 응답하는 권역—안으로 창발하고 있다. 원초 기세는 절대성에 대한 비례 안에서 초월적 원인성에 반응적인 것으로 보인다.

42:2.9 (469.9) 원초기세는 때로 순수 에너지라고 불리는데, 유버사에서 우리는 분리소(分離素)로 부른다.

42:2.10 (470.1)

3. 창발에너지들. 1차 기세조직자들의 수동적 현존은 공간 잠재력을 원초기세로 변환하기에 충분하며, 이것은 동일한 이 기세조직자들이 그들의 최초이자 활동적인 작용들을 시작하는 그러한 활성화 된 공간 지역에서 일어난다. 원초기세는 우주 힘으로 나타나기 전에 에너지 현시활동의 영역에서 뚜렷한 두 가지 변형의 위상을 지나도록 정해져 있다. 이들 창발 에너지의 두 차원들은 다음과 같다:

42:2.11 (470.2)

가. 강력 에너지. 이것은 힘찬-방향성이 있고, 집합체-운동성이 있고, 막강한-긴장성이 있으며, 그리고 기세넘친-반응성이 있는 에너지이다.—1차 기세조직자들의 활동들에 의해 움직임으로 정립된 거대한 에너지 체계들이다. 이 1차 곧 강력 에너지는, 처음에는 파라다이스-중력 당김에 대해 분명하게 응답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파라다이스 하부 면에서 작용되는 절대 영향력의 축적된 집단에 대응하는 총체적-집합체, 곧 공간-방향성의 응답을 산출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에너지가 파라다이스의 순환적 그리고 절대적-중력 장악에 대해 최초 응답 차원으로 창발하면, 1차 기세

조직자들은 그들의 2차 연관-동료들이 기능하도록 길을 내준다.

42:2.12 (470.3) 나. 중력 에너지. 이제 나타나는 중력-응답 에너지는 우주 힘의 잠재를 지니며 모든 우주 물질의 실질적인 조상이 된다. 이 2차 또는 중력 에너지는 연관-동료 초월 주(主)기세 조직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압력-현존 그리고 긴장-동향들에서 기인된 에너지 노작의 산물이다. 이들 기세 조종자들의 작업에 응답하여, 공간-에너지는 강력에서 중력단계로 재빨리 넘어가고, 그리하여 파라다이스 (절대) 중력의 순환적 장악에 직접적으로 응답하게 되며 한편으로는 에너지와 물질의 전자적 그리고 전자이후 단계의 곧 출현하는 물질적 질량 속에 선천적인 직선-중력 당김에 대한 감응성에 관하여 어떤 잠재를 나타낸다. 중력 응답이 나타남에 따라, 연관-동료 주(主) 기세 조직자들은, 그 활동 마당으로 우주 힘 지도자들이 배정될 수 있도록 공간의 에너지 소용돌이들로부터 물러나도 된다.

42:2.13 (470.4) 우리는 기세 진화의 초기 단계들의 정확한 원인에 관해 매우 확신이 없지만, 창발-에너지 현시활동의 두 차원

모두에서의 궁극자의 지능 활동을 인지하고 있다. 강력 그리고 중력 에너지는, 축적하여 생각할 때, 유버사에서 궁극소(窮極素)라고 불린다.

42:2.14 (470.5) 4.우주힘. 공간-기세는 이미 공간-에너지로, 그러고나서 중력 통제를 받는 에너지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물리적 에너지는 그것이 힘 통로 안으로 이끌리고 그리고 우주 창조자들의 각가지 목적들에 봉사하도록 만들어진 그 지점까지 무르익어 왔다. 이 작업은—조직화되고 거주민이 사는 창조계들—대우주 안에서 물리적 에너지의 다양한 지도자들, 중심들 그리고 통제자들에 의해 수행된다. 이들 우주 힘 지도자들은 일곱 초우주들의 현 에너지 체계를 구성하는 30개 위상 에너지 중에서 21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완벽한 통제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힘-에너지-물질의 이 권역은 최극자의 시간-공간 전반적-통제 하에서 기능하는 칠중 하느님의 지능 활동들의 영역이다.

42:2.15 (470.6) 유버사에서 우리는 우주 힘의 영역을 중력소(重力素)라고 부른다.

42:2.16 (470.7) 5. 하보나 에너지. 개념 면에서 이 이야기는 변형되는 공간-기세가, 한 차원 한 차원, 시공 우주들의 에너지-힘 활동차원까지 이어져 오면서 파라다이스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파라다이스를 향하여 계속가면, 중앙우주의 특징이 되는 에너지의 실존-이전(以前) 위상을 그 다음에 만나게 된다. 여기서 진화적인 순환은 그 자체에게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에너지-힘은 이제 기세를 향하여 역회전 진동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기세 본성은 공간 잠재력 그리고 원초기세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 하보나 에너지 체계는 이원적이 아니다. 그들은 삼원일체(三元一體)이다. 이것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대신하여 기능하는, 공동 행위자의 실존적 에너지 권역이다.

42:2.17 (471.1) 유버사에서는 하보나의 이 에너지들이 삼력소(三力素)라고 알려져 있다.

42:2.18 (471.2) 6. 초월 에너지. 이 에너지 체계는 파라다이스의 위쪽 차원으로부터 그리고 그곳에서 작동하며

아(亞)절대적 민족들과 관련해서만 작동한다.
유버사에서는 그것을 초월소(超越素)라고 부른다.

42:2.19 (471.3) 7. 단일소(單一素). 에너지는 그것이 파라다이스 에너지일 때 신성의 일가로서 가깝다. 우리는 단일소(單一素)가 파라다이스의 살아있는, 비(非)영 에너지—기원 아들의 영 에너지, 살아있는 영원 사본—그러므로, 우주 아버지의 비(非)영적 에너지 체계라고 믿고자 한다.

42:2.20 (471.4) 우리는 파라다이스 영과 파라다이스 단일소의 본성을 구분할 수 없다; 그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다. 그것들은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만, 너희는 그것의 영적인 현시활동과 비(非)영적인 현시활동이 오직 이름에 의해서만 구분될 수 있는 실체들에 대해 많이 들을 수 없을 것이다.

42:2.21 (471.5) 우리는 유한한 창조체들이 칠중 하느님과 생각 조절자들의 사명활동을 통해서 우주 아버지에 대한 경배 체험을 얻을 수 있음을 알지만, 어떤 하위-절대 개인성, 심지어는 힘 지도자들이라도 첫째 위대한 근원이며 중심의 에너지 무한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일 힘 지도자들이 공간-기세 변환의 기법에 정통하다면, 그들은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까지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이 기세조직자들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42:2.22 (471.6) 이들 힘 지도자들 자신은 에너지 촉매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들의 현존에 의해서 에너지를 단위형태로 분할하고 조직하고 또는 조립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에너지 속에는, 이들 힘 실존개체들의 현존으로 그렇게 기능하게 만드는 선천적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바돈 멜기세덱들은 조화우주 기세가 우주 힘으로 변형되는 현상을 오래 전부터 일곱 “신성의 무한성” 중의 하나로서 불러 왔다. 그리고 너희가 지역우주 상승 동안 나아가볼 수 있는 지점이 거기까지이다.

42:2.23 (471.7) 조화우주 기세의 기원과 본성 그리고 변형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발-에너지 형태를, 대체로 초우주 힘 지도자들의 기능이

시작될 무렵인—파라다이스 중력 활동에 직접 그리고
어김없이 응답하던 때부터 충분하게 익히 알고 있다.

제 3 장. 물질의 분류

42:3.1 (471.8) 중앙우주를 제외하고, 모든 우주에 있는 물질은
동일하다. 물질은 물리적 보유특성에서 구성 원소의
회전율, 회전하는 원소들의 숫자와 크기, 핵 몸체로부터의
거리 또는 물질의 공간 함유에 따라 결정되며, 또한
마찬가지로 유란시아에서 아직은 발견되지 않은 어떤
기체들의 현존에 따라 결정된다.

42:3.2 (471.9) 다양한 태양들, 행성들 그리고 공간 몸체들에서,
열 가지의 큰 물질구분이 있다:

42:3.3 (472.1) 1. 극자 물질—물질적 실존의 근본 물리 단위,
전자를 만드는 에너지 입자.

42:3.4 (472.2) 2. 하위-전자 물질—태양의 초(超)기체들이
폭발하고 그리고 반발하는 단계.

42:3.5 (472.3) 3. 전자 물질—전자, 양성자, 그리고 전자 집단의
여러 구성에 들어가는 다양한 다른 단위들,—물질적
차별화의 전기적 단계.

42:3.6 (472.4) 4. 하위-원자(原子) 물질—뜨거운 태양들 내부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물질.

42:3.7 (472.5) 5. 분쇄된 원자—식어가는 태양들과 우주에 두루 발견되는 것.

42:3.8 (472.6) 6. 이온화 물질—전기적으로, 열에 의해, 또는 X-선의 활동 때문에 그리고 용매 때문에 외부 (화학적으로 활동적인) 전자들이 제거된 개별 원자들.

42:3.9 (472.7) 7. 원자 물질—기본적인 조직을 갖는 화학적 단계, 분자 또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구성단위들.

42:3.10 (472.8) 8. 물질의 분자 단계—일반적인 조건하에서 비교적 안정된 물질적 상태를 유지하면서 유란시아에 존재하는 물질.

42:3.11 (472.9) 9. 방사성 물질—적당한 열과 감소된 중력 압력의 조건하에서 비교적 무거운 원소들의 조직파괴 경향과 활동.

42:3.12 (472.10) 10. 붕괴된 물질—식어버린 또는 죽은 태양들의 내부에서 발견되는 상대적으로 고정된 물질. 이 형태의 물질은 실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약간의

극자적인, 그리고 얼마간의 전자 활동도 있지만, 이 들 단위체들은 매우 근접된 상태에 있으며, 회전율은 크게 감소되어 있다.

42:3.13 (472.11) 앞에서 말한 물질 분류는 창조된 존재들의 보이는 형태보다는 그 조직과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에너지의 창발의-이전의 단계는 물론, 파라다이스에서 그리고 중앙우주에서의 영원한 물질화의 단계도 또한 참작하지 않은 것이다.

제 4 장. 에너지와 물질의 변형

42:4.1 (472.12) 빛, 열, 전기, 자기, 화학, 에너지, 그리고 물질은—기원, 본질, 그리고 운명으로 볼 때—유란시아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물질적 실체들과 더불어, 하나이며 동일하다.

42:4.2 (472.13) 우리는 물리적 에너지가 겪을 수 있는 거의 끝없는 변화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한 우주에서는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고, 다른 우주에서는 열이 추가되는 빛으로, 또 다른 우주에서는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말 못할 수백만 세월 속에서, 그것은 가민이 못 있는 어떤 형태로서, 갑자기 밀려오는

전기에너지나 또는 자력(磁力)으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전히 어떤 뒤이어지는 우주에서, 변환의 어떤 일련의 연속을 두루 지나면서 다양한 물질의 어떤 형태로 나타났다가, 그 영역의 어떤 대재앙에서 그 걸모습이 물리적으로 사라짐이 따르게될지 모른다. 그리고나서, 셀 수 없는 세월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우주들을 거의 끝없이 방랑한 후에, 다시 이 동일한 에너지가 다시-창발하여 여러 차례 그 형태와 잠재를 바꿀지 모른다; 이렇게 이들 변형들은 뒤이어지는 세월과 셀 수없는 영역에 두루 계속된다. 그래서 물질은 시간의 변이를 겪으면서 그렇게 휩쓸려가며 그러나 참으로 언제까지나 영원의 순환계를 휘돌아 회전하고 있다; 그 근원으로 돌아오는 것이 오랫동안 저지된다 하더라도, 물질은 언제까지나 그 근원에 응답하며, 그것을 내보낸 무한 개인성에 의해 정해진 경로에서 언제까지나 나아간다.

42:4.3 (473.1) 힘 중심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는 극자를 전자의 순환회로와 회전으로 변형시키는 일에 주로 관여되고 있다. 독특한 이 존재들은 물질화된 에너지, 극자들의 기본 단위들을 그들이 기술적으로 조종함으로써 힘을 통제하고

합성한다. 그들은 그것이 이 원시상태 안에서 순환되게 하듯이 에너지의 대가들이다. 물리통제자와의 연락에서 그들은 소위 전자단계라 불리는 전기적 차원으로 그것이 변형된 이후일지라도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 범위는 전자적으로 조직된 에너지가 그 원자 체계들의 소용돌이 속으로 요동치며 들어갈 때 크게 단축된다. 그러한 물질화가 이루어지면, 이 에너지들은 직선중력의 잡아끄는 힘의 완벽한 장악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

42:4.4 (473.2) 중력은 힘 중심들과 물리통제자들의 힘 계통들과 에너지 통로에서 양성적으로 활동하지만, 이들 존재는 중력에 대해 오로지 음성적인 관계—그들의 반(反)중력 자질의 행사—만을 갖는다.

42:4.5 (473.3) 모든 공간에 두루, 차가움과 기타 다른 영향이 극자들을 창조적으로 전자로 조직화하는 일에 기여한다. 열은 전자 활동의 척도이지만, 한편 차가움은 열이 없음—비교되는 에너지 휴식—을 의미하며, 창발 에너지는 물론 조직화된 물질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중력에 응답하지도 않는 상태인 공간의 우주기세-충전 지위를 의미한다.

42:4.6 (473.4) 중력 현존과 활동은 이론상의 절대 영점(零點)의 등장을 방해한다, 왜냐하면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은 절대 영점(零點)의 온도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조직화된 공간에 걸쳐, 중력-응답하는 에너지 흐름과 힘 순환회로 그리고 극자 활동들은 물론 조직화를 이루는 전자 에너지들도 있다. 실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공간은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유란시아의 대기권도 점점 더 희박하게 되어 약 3,000마일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우주의 이 구역에서 평균적인 공간 물질로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다. 네바돈 안에서 가장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알려진 부분은 1입방 인치당—하나의 전자에 해당하는—약 100개 극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물질의 희박성은 실질적으로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간주된다.

42:4.7 (473.5) 온도—열과 차가움—는 에너지와 물질 진화의 영역에서 중력 다음으로 중요하다. 극자들은 온도의 양극단에 겸허하게 복종하고 있다. 낮은 온도는 일정 형태의 전자 구축과 원자 조합을 도와주는 반면, 높은

온도는 모든 종류의 원자 붕괴와 물질적 집대성-해체활동을 촉진시킨다.

42:4.8 (473.6) 일정한 내부의 태양상태의 열과 압력에 종속될 때, 물질의 가장 시원적인 관계적-연합들이 거의 깨어질 것이다. 그렇게 열은 중력 안정을 크게 압도한다. 그러나 알려진 어떤 태양열이나 압력도 극자들을 강력에너지로 되돌려 놓을 수 없다.

42:4.9 (473.7) 타오르는 태양들은 물질을 다양한 에너지 형태들로 변환시킬 수 있지만, 흑암세계들과 모든 다른 외계 공간은 이들 에너지들이 영역의 물질로 바꾸는 지점까지 전자적 그리고 극자 활동의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가까운 본성의 특정한 전자 관계적-연합들은, 대부분의 핵 물질 기본 관계적-연합들과 마찬가지로, 개방된 공간의 지극히 낮은 온도에서 형성되고, 그리고는 물질화를 이루는 에너지의 더욱 큰 응집으로 관계적-연합됨으로써 증강된다.

42:4.10 (473.8) 에너지와 물질의 이 결코-끝남 없는 모든 변환에 두루, 우리는 중력 압력의 영향과 그리고 온도, 속도, 회전의 일정조건 아래에 있는 극자의 에너지들의

반(反)중력 습성들의 영향과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온도, 에너지 흐름, 거리, 그리고 살아있는 기세조직자들과 힘 지도자들의 현존도 에너지와 물질의 모든 변형 현상에 또한 관여한다.

42:4.11 (474.1) 물질에서 질량의 증가는 빛의 속도 제공으로 나눈 에너지 증가와 같다. 동적인 의미에서, 쉬고 있는 물질이 이행할 수 있는 일은, 파라다이스로부터 그 부분들을 함께 가져오는데 소비된 에너지에서, 변천 중에 극복한 기세의 저항력과 물질의 부분들에 의해 서로 각각에 행사되는 인력을 뺀 것과 동일하다.

42:4.12 (474.2) 물질의 전자-이전(以前) 형태들의 실존은 납의 두 가지 원자무게로 알 수 있다. 기원적 형성의 납은 라듐을 방출함으로써 우라늄이 집대성-해체활동을 통해 산출된 것보다 약간 더 무겁다; 원자 무게에서의 이 차이는 원자 붕괴에서 에너지의 실재손실을 대표한다.

42:4.13 (474.3) 물질의 상대적인 고결한-순수성은 에너지가 유란시아 과학자들이 양자들이라고 표현한 그 정확한 양으로써만 흡수되거나 방출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확인된다. 물질 영역에서 이 방법이 마련된 것은 우주들이 그렇게 관계를 이루면서 유지하는 데 봉사한다.

42:4.14 (474.4) 전자의 또는 다른 위치들이 바뀌면서 얻거나 빼앗기는 에너지의 양은 항상 하나의 “양자” 또는 그것의 몇 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러한 에너지 단위의 진동하는 또는 파동형태의 속성은 관련된 물질구조의 규모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 그러한 파동 형태의 에너지 물결은 극자, 전자, 원자, 또는 그것을 일으키고 있는 다른 단위체들의 직경의 860배이다. 양자 행태에서의 파동 구조를 관찰할 때 나타나는 끝이-없는 혼동은 에너지 파동들의 초(超)부담에 기인 한다: 두 개의 물마루가 합쳐져서 두 배 높이의 한 물마루로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한 물마루와 한 물계곡이 합쳐져서 서로 상쇄되어 없어질 수도 있다.

제 5 장. 파동-에너지 현시활동

42:5.1 (474.5) 오르본톤 초우주에는 100개의 8행(行) 파동 에너지들이 있다. 에너지 현시활동의 이 100개 집단 중에서 64개가 유란시아에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인지되고 있다. 태양 광선들은 초우주 척도로 볼 때 4개의

8행(行)들을 구성하는데, 가시광선은 하나의 단일 8행(行), 이 연속물 중 46번을 포용한다. 자외선 집단이 다음에 오고 한편, 그 위로 10개의 8행(行)들은 X선들이고, 라듐의 감마광선들이 뒤따른다. 태양의 가시광선 위쪽으로 32개 8행(行)들은, 높은 에너지를 가진 그들의 연관된 물질의 미세입자와 너무나 자주 혼합되는 외계 공간의 에너지광선들이다. 가시 태양광선의 그 아래쪽에는 적외선이 나타나며, 그리고 밑에 있는 30개의 8행(行)들은 무선송신 집단들이다.

42:5.2 (474.6) 파동형태 에너지 현시활동은—20세기 유란시아 과학적 깨우침의 입장에서 볼 때—다음과 같이 10개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42:5.3 (474.7) 1. 극자 아래 광선들—극자들이 분명한 형태를 짓기 시작하면서 갖는 경계지대 극자들의 회전. 이것은 파동 형태 현상이 감지되고 측정될 수 있는 창발 에너지의 최초 단계이다.

42:5.4 (474.8) 2. 극자 광선들. 식별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공간 내용으로 진동을 유래시키는 극자의 미세구체 안에 있는 에너지의 조합. 그리고 언젠가는 물리학자들이

극자를 발견하기 훨씬 전에, 그들은 유란시아에 쏟아 부어지고 있는 이들 광선의 현상을 틀림없이 감지할 것이다. 짧고 강력한 이 광선들은 물질의 전자적 조직을 향하여 전향하는 그 점까지 속도를 낮추어 가는 극자들의 최초 활동을 대표한다. 극자들이 전자로 뭉쳐질 때, 응축이 필연적인 에너지 저장으로 발생한다.

42:5.5 (475.1) 3. 짧은 공간 광선들. 이들은 모든 순수하게 전자적인 진동들 중에서 가장 짧으며 물질의 이 형태의 원자-이전(以前) 단계를 대표한다. 이들 광선은 그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높거나 낮은 온도를 필요로 한다. 이들 공간 광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원자 탄생에서 수반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자 붕괴의 징후이다. 그것들은 외계우주에서 가장 조밀한 평면인 초우주, 은하계의 가장 조밀한 평면으로부터 가장 많은 양이 발산된다.

42:5.6 (475.2) 4. 전자(電子) 단계. 에너지의 이 단계는 일곱 초우주들의 모든 물질화의 기본이다. 전자들이 궤도회전의 높은 에너지 차원에서 낮은 에너지 차원으로 통과할 때, 항상 양자들이 방출된다. 전자들의

궤도변경에는 빛-에너지의 매우 분명하고 정형화된 측정 가능한 입자들의 방출 또는 흡수가 일어나며 한편, 개별 전자는 충돌을 당할 때 항상 빛-에너지 입자를 방출한다. 파동형태의 에너지 현시활동은 또한 양성 몸체와 전자단계의 다른 구성원의 행위에도 수반된다.

42:5.7 (475.3) 5. 감마 광선—원자 물질의 자연 붕괴로 특징되는 방사. 전자 활동의 이 형태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라듐 집대성-해체활동과 연관된 현상 속에 있다.

42:5.8 (475.4) 6. X-선 집단. 전자가 느려지는 다음 단계는 인위적으로 산출된 X 선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 태양 X 선들이 산출된다. 전자 전하(電荷)는 전자장을 만들며; 운동은 전류 흐름을 일으키며; 전류는 자기장을 만든다. 하나의 전자가 갑자기 멈추면, 그에 따라 생기는 전자기 격동은 X 선을 산출 한다; X 선은 바로 그 동요이다. 조금 길다는 것을 제외하면, 태양 X 선은 인체의 내부를 탐구하기 위하여 기계적으로 발생된 것들과 동일하다.

42:5.9 (475.5) 7. 자외선 곧 태양의 화학적 광선과 다양한 기계적 생성물.

42:5.10 (475.6) 8. 백색광—태양의 가시광선 전체.

42:5.11 (475.7) 9. 적외선—여전히 열로 감지할 수 있는 단계에
근접하면서 점점 느려지는 전자 활동.

42:5.12 (475.8) 10. 헤르츠의 파동—유란시아에서 방송에
사용되는 에너지들.

42:5.13 (475.9) 파동형태 에너지 활동의 이들 10개 위상 전체에서,
인간의 눈은 오직 하나의 8행(行), 보통 태양광선의 빛
전체에만 반응한다.

42:5.14 (475.10) 이른바 에테르라는 것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어느
집단의 기세와 에너지 활동을 지칭하는 집합적 명칭에
불과하다. 극자, 전자, 그리고 다른 에너지 질량
집합체들은 일정형식의 물질 입자이며, 공간을 통과함에
있어서 그것은 실제로 직선으로 진행한다. 빛과 다른 모든
형태의 식별할 수 있는 에너지 현시활동들은 중력 그리고
중간에 개재하는 다른 기세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한,
직선으로 진행하는 명확한 에너지 입자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관찰 조건 밑에서, 에너지 입자들의
이 행렬이 파동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모든 공간의

획일적 기세의 덮개, 가설적인 에테르의 저항력과 물질의 연관된 집합체의 중력사이의 긴장 때문이다. 물질의 입자간격들에 있는 공간은, 에너지 빛줄기의 초기 속도와 함께, 여러 형태의 에너지-물질의 물결 모양의 출현을 만든다.

42:5.15 (476.1) 배가 물을 가르고 지나갈 때 진폭과 간격이 변하는 물결을 일으키는 것처럼, 공간 내용의 자극이 급속히 움직이는 물질 입자들의 통과에 대해 물결 같은 반응을 만든다.

42:5.16 (476.2) 원초기세 행위는 너희의 가정된 에테르와 여러 면으로 유사한 현상들을 일으킨다. 공간은 비어있지 않다; 모든 공간의 구체들은 펼쳐지는 기세-에너지의 광대한 바다를 지나 소용돌이치며 돌입 한다; 한 원자 내부의 공간조차도 비어 있지 않다. 아무런 에테르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없는 가정적 에테르 바로 그것이 거주민이 사는 행성으로 하여금 태양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피하게 하며 에워싸 돌고 있는 전자가 핵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저항하게 한다.

제 6 장. 극자, 전자, 그리고 원자

42:6.1 (476.3) 우주 기세의 공간 충전이 균일하고 획일적인 반면,—정교한 중력 반응—회전하는 에너지를 물질로 조직하는 것은 일정한 규모와 확정된 무게를 갖는 개개 질량체 안으로 에너지가 응축되는 것을 수반한다.

42:6.2 (476.4) 지역적 또는 직선적 중력은 물질의 원자 조직의 출현과 함께 충분히 작용하게 된다. 원자-이전(以前) 물질이 X 선 그리고 다른 비슷한 에너지들에 의해 활성화 될 때에는 약한 중력 응답을 갖게 된다, 그러나 자유롭게 종속되어 있지 않으며 충전되지 않은 전자-에너지 입자 또는 연관되지 않은 극자들에게는 측정할 수 있는 아무런 직선-중력의 끌어당김이 미치는 것이 없다.

42:6.3 (476.5) 극자들은 오직 순환하는 파라다이스-중력 잡아당김에만 응답하면서, 상호간의 인력으로서 기능한다. 이처럼 그들은 직선-중력 응답이 없이 우주 공간의 표류에 붙잡혀 있다. 극자들은 부분적 반(反)중력 작용점에 이르기까지 회전 속도를 가속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세조직자들 또는 힘 지도자들과 독립하여, 강력에너지 단계로 되돌아가는 비(非)개별화를 위한 임계 탈출 속도를 달성하지는 못한다. 본질적으로, 극자들은

오직 식어버리고 죽어가는 태양의 마지막 붕괴에 참여할 경우에만 물리적 실존의 지위를 벗어난다.

42:6.4 (476.6) 유란시아에서 알려지지 않은 극자들은, 전자 조직에 필수 조건인 회전-에너지를 달성하기 전에, 여러 위상의 물리적 활동을 통하여 속도가 줄어든다. 극자들은 운동의 세 가지 변화성을 가지고 있다: 조화우주 기세에 대한 상호 저항력, 반(反)중력 잠재에서의 개별 회전, 그리고 상호 내부-연관된 100개 극자들의 내부전자 위치이다.

42:6.5 (476.7) 상호간의 인력은 전자의 조직에서 100개 극자들을 묶어둔다; 전형적인 전자 안에는 정확하게 100개의 극자들이 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극자를 잃어버리면 전형적인 전자적 정체성이 파괴되고, 이로 인하여 전자의 10가지 변형형태 중 하나가 만들어진다.

42:6.6 (476.8) 극자들은 전자내부에서 순환회로(回路)를 이루어 소용돌이치거나 궤도를 그리지는 않지만, 그들의 축 회전 속도들에 따라 퍼지거나 군(群)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전자 규모를 결정한다. 바로 이 극자의 축 회전속도는 또한 전자 단위들의 여러 유형의 음성 또는

양성 반응들을 결정한다. 전체적인 전자 물질의 분리와 집단화는, 에너지-물질의 음성체 그리고 양성체들의 전기적 차별화와 함께, 이렇게 극자적으로 상호-연관하는 요소들의 이들 다양한 기능들로부터 기인된다.

42:6.7 (477.1) 각 원자는 직경이 1인치의 1억 분의 1을 약간 넘는 반면, 전자 1개의 무게는 가장 작은 원자인 수소의 2,000분의 1보다 약간 무겁다. 원자핵의 특징인 양성인 양성자는, 음성인 전자보다 크지는 않은 반면, 무게는 거의 2,000배 더 무겁다.

42:6.8 (477.2) 물질의 질량이 커져서, 전자가 1온스의 10분의 1과 같은 무게가 될 수 있다면, 같은 비율로 확대되었을 때의 그러한 전자의 부피는 지구만큼 크게 될 것이다. 만약에 한 전자의 1,800배 무게인—한 개의 양성자의 부피가 못의 머리만큼 확대되어 본다면, 그에 비례한, 하나의 못의 머리는 태양을 도는 지구 궤도의 직경과 같아질 것이다.

제 7 장. 원자 물질

42:7.1 (477.3) 모든 물질의 형태화는 대략 태양계의 계층과 같다. 에너지를 가진 모든 미세한 우주의 중심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비교적 고정된, 물질 실존의 핵 부분이 있다. 이

단위 중심은 삼중적 현시활동 가능성을 자질로서 부여받고 있다. 이 에너지 중심 둘레를 둘러싸면서, 너희가 속한 태양계처럼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어느 별 집단과 희미하게 견주어 볼 수 있는 단위 에너지들이, 끝없이 풍부하게 그러한 한편 동요하는 순환회로로서 소용돌이친다.

42:7.2 (477.4) 원자 내부에서 전자들은, 태양계의 공간 안에서 행성들이 태양주변을 돌면서 가지는 공간과 대체로 비슷한 상대적 공간을 가지고, 중앙 양성자 둘레를 회전한다. 실재 크기로 비교해 볼 때 지구보다 안쪽에 있는 수성과 너희 태양 사이에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상대적 거리가 원자핵과 안쪽의 전자 순환회로 사이에 있다.

42:7.3 (477.5) 전자의 축 회전과 원자핵 둘레를 도는 궤도 속도는 둘 모두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며, 그들의 구성요소인 극자들의 속도는 말할 것도 없다. 라듐의 양성 입자들은 초당 1만 마일의 속도로 공간 속으로 날아가 버리며 한편, 음성 입자들은 광속에 가까운 속도를 낸다.

42:7.4 (477.6) 지역우주는 10진법 소수의 구조로 되어있다. 이원적(二元的) 우주에는 정확하게 100개의 식별 가능한

공간-에너지의 원자 물질화가 있다; 이것이 네바돈에서 최대로 가능한 물질 조직이다. 이 100개 물질 형태들은 비교적 조밀한 핵인 중앙 둘레를 1개부터 100개의 전자들이 도는 규칙적인 연속물로 구성된다. 물질을 조성하는 것이란 바로 이 다양한 에너지를 질서 있게 그리고 믿을만하게 관계적-연합하는 것이다.

42:7.5 (477.7) 식별 가능한 100 가지 원소들을 모든 세계가 그 표면에 현시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것들은 어딘가에 있거나, 있었거나, 또는 진화의 과정에 있다. 행성의 기원 그리고 그 이후 진화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100개 원자 유형 중에서 몇 개가 관찰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 비교적 무거운 원자들은 많은 세계들의 지표면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유란시아의 경우에도, 이미 알려진 라듐의 속성이 보여주다시피, 비교적 무거운 원소들은 조각이 되어 흩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42:7.6 (477.8) 원자의 안정성은 중앙체에 있는 전기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중성자의 숫자에 달려있다. 화학적 속성은 자유롭게 회전하는 전자들의 활동에 따라 전적으로 좌우된다.

42:7.7 (478.1) 오르본톤에서는 하나의 원자 체계 안에서 궤도를 도는 전자들을 100개 이상 조립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가능한 적이 결코 없었다. 101개를 인위적으로 궤도의 장(場)에 주입하였을 때, 그 결과는 전자들 그리고 기타 자유에너지들이 사납게 분산되면서, 중앙의 양성자가 언제나 거의 순간적으로 붕괴되었다.

42:7.8 (478.2) 원자들이 궤도를 도는 전자들을 한 개부터 100개 포함할 수 있는 반면, 비교적 큰 원자들의 외곽 층에 있는 10개의 전자만이, 별개의 그리고 분리된 몸체로서 중앙 핵 둘레를 정밀하고도 분명한 궤도에서 온전하고도 치밀하게 휘돌아 회전한다. 중앙에 가장 가까운 30개의 전자들은 분리되고 조직화된 몸체로 관찰되거나 탐지되기가 어렵다. 품고 있는 전자의 수와 상관없이, 핵과의 근접성과 관련된 전자 속성의 동일한 이 상대적 비율은 모든 원자에서 성립된다. 핵에 근접할수록, 전자의 개별성이 줄어든다. 한 전자의 파동형태 에너지 확장은 비교적 적은 원자 궤도 전체를 장악할 정도로 퍼져나갈 수 있다; 특히 이것은 원자핵에 가장 가까운 전자들에게는 참으로 그렇다.

42:7.9 (478.3) 가장 가까운 궤도에 있는 30개의 전자는 개별성은 있지만, 한 전자에서 다른 전자로 그리고 거의 궤도로 부터 궤도로 확장되면서 그 에너지 체계들은 서로 섞이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의 30개 전자들은 두 번째 집단, 곧 에너지 지대를 이루며, 개별성을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자체에 속하는 에너지 체계에 대한 더욱 완벽한 통제를 발휘하는 물질체이다. 세 번째 에너지 지대, 그 다음 30개 전자들은 더욱 개별존재화 되었고, 더욱 뚜렷하고 명확한 궤도 안에서 순환한다. 마지막 10개의 전자들은, 가장 무거운 10개 원소에만 있으며, 독립된 장중함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모체 핵의 통제로부터 다소 자유롭게 탈출할 수 있다. 4번째이자 가장 외곽에 있는 전자 집단의 구성원들은, 우라늄과 동위원소들의 자연붕괴로서 설명되다시피, 온도와 압력의 최소 변화에서도 중앙 핵의 세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42:7.10 (478.4) 하나부터 27개의 궤도전자를 포함하는, 처음 27개의 원자들은, 다른 것들보다 이해하기에 더욱 쉽다. 28번째 그 위로는, 우리는 분별불가 절대자의 현존으로 추정되는 예측불가능성과 점점 더 마주치게 된다. 그러나 이 전자의 예측불가능성의 일부는 서로 다른 극자의 축

회전속도, 그리고 설명이 안 되는 극자들의 “떼 짓는” 성향 때문이다. 다른—물리적, 전기적, 자기적, 그리고 중력의—영향들 역시 다양한 전자 속성을 낳도록 작용한다. 예측가능성에서 볼 때 원자들은 그 결과로서 개인들과의 경우와 비슷하다. 통계학자들은 하나의 개별 원자나 개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지만, 많은 원자들 또는 개인들에 적용되는 법칙들은 발표할 수도 있다.

제 8 장. 원자의 응집

42:8.1 (478.5) 미세 원자에너지 체계를 함께 붙들어 놓는 것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 중 하나가 중력인 반면, 이 기본 물리적 단위 안에는 그리고 그 사이에는 강력하고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 원자의 기본 조성과 궁극적 속성의 비밀, 유란시아에서 발견될 것으로 남아 있는 기세가 또한 제시되어 있다. 이 우주 영향은 이 미세 에너지 조직 안에 포용된 모든 공간에 스며있다.

42:8.2 (478.6) 원자의 상호전자 공간은 비어있지 않다. 원자에 두루 이 상호전자 공간은 전자 속도 및 극자회전과 완전하게 동조되는, 파동형태의 현시활동으로 말미암아 활성화된다. 이 기세는 너희에게 알려진 양과 음의

인력법칙에 전적으로 지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 속성은 때때로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이 영향은 분별불가 절대자의 공간-기세 반응인 것으로 여겨진다.

42:8.3 (479.1) 원자핵 안에서 전하를 가진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은 중성자는 전자의 180배만큼 무거운 물질 입자인 중간자의 상호보답 하는 기능으로 말미암아 서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배열이 없다면, 양성자로 인하여 야기되는 전하는 원자핵을 붕괴시킬 것이다.

42:8.4 (479.2) 원자들이 조성된 상태에서, 전기적 또는 중력의 기세는 핵을 함께 유지할 수 없다. 핵의 고결한-순수성은 상급의 기세-질량 힘과 그리고 나아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끊임없이 자리를 바꾸게 하는 기능에 의하여 전하와 비전하 입자들을 함께 유지하게 하는 중간자의 상호보답적인 응집기능에 의해 유지된다. 중간자는 핵입자의 전하가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끊임없이 오락가락 던져지게 만든다. 1초의 극소 부분의 시점에서, 주어진 하나의 핵입자는 전하를 띤 양성자가 되고 다음에는 전하가 없는 중성자가 된다. 그리고 에너지

지위의 이 교대 현상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전하가 하나의 붕괴 영향력으로 기능할 모든 기회를 빼앗긴다. 그래서 중간자는 원자의 핵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에너지-운반체” 입자로서 기능한다.

42:8.5 (479.3) 중간자의 현존과 기능은 또한 다른 원자의 수수께끼도 설명한다. 원자들이 방사능으로 작용할 때, 그것들은 기대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내뿜는다. 이 초과 방사능은, 그로서 간단히 전자가 되는 중간자인 “에너지-운반체”의 파괴로 부터 유래된다. 중간자 집대성-해체활동에는 또한 작은 전하를 띠지 않은 입자들의 방출이 수반된다.

42:8.6 (479.4) 중간자는 원자핵의 어떤 응집 성질을 설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양성자와 양성자 간의 응집이나 중성자와 중성자의 접착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원자의 응집하는 고결한-순수성의, 역설적이면서 강력한 기세는 유란시아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에너지 형태이다.

42:8.7 (479.5) 이들 중간자들은 너희 행성에 그토록 끊임없이 침범하는 우주 광선들 속에서 풍부하게 발견된다.

제 9 장. 자연 철학

42:9.1 (479.6) 종교만이 홀로 독단적이 아니다; 자연 철학도 똑같이 독단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유명한 종교 선생이 인간의 머리에 구멍이 일곱이기 때문에, 7이 자연에는 기초라고 말했을 때, 만약 그가 화학에 대해 좀 더 알았더라면, 그는 물리 세계의 참된 현상에 기초를 둔 그러한 믿음을 주창했을 수도 있었다. 에너지에서의 10진법 소수로 이루어진 구성의 우주 현시활동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의 모든 물리적 우주에는 이전(以前)물질의 7중 전자조직인 실체를 언제나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 있다.

42:9.2 (479.7) 7이라는 숫자는 중앙우주에서, 그리고 선천적 성격 전달의 영 체계에서 기본이다, 그러나 10진법 소수의 체계인 10이라는 숫자는 에너지, 물질 그리고 물질적 창조에서 선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 세계는—이 물질세계로 옮겨져서 아주-먼 영적 기원을 암시하는 출생 반점—일곱 집단으로 반복하는 어떤 주기적 특징을 나타낸다.

42:9.3 (480.1) 창조적 조성의 이 7중 잔존은 기본 원소들이 그 원자 무게의 순서로 배열될 때 7로 차별화된 주기로서

비슷한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속성들의 반복으로 화학 영역에서 나타내진다. 유란시아 화학 원소들이 이렇게 한 줄로 배열될 때, 어느 주어진 본질특성과 속성은 7배수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일곱에 의한 이 주기적 변화는 전체 화학분석표에 두루 점점 감소하면서 그리고 변화를 가지고 반복되는데, 비교적 앞에 있는 그리고 비교적 가벼운 원자 집합에서 가장 분명하게 관측된다. 어느 한 요소에서 시작하여, 어떤 하나의 특성을 기록한 후에, 그러한 본질특성은 계속되는 여섯 원소에서 변화될 것이지만, 여덟 번째에 이르면, 화학적 활성원소의 여덟 번째 원소는 첫 번째와, 아홉 번째는 두 번째와 비슷하며,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물리 세계의 이러한 사실은 선조가 되는 에너지의 7중 조성을 뚜렷이 가르치며 시간과 공간의 창조계의 7중 다양성을 가진 기본적 실체를 나타낸다. 또한 인간은 자연 분광에 일곱 색들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42:9.4 (480.2) 그러나 자연철학의 가정들이 모두 타당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가설의 에테르는 인간의 공간 현상에 대한 무지를 통합하려는 교묘한 시도를 나타낸다. 우주의 철학은 소위 과학이라 불리는 관찰위에 근거를 둘 수 없다.

과학자는, 아마 그렇게 전혀 다른 변환을 볼 수가 없다면, 애벌레에서 벗어나 나비로 발전되는 가능성을 부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42:9.5 (480.3) 생물학적 순응성과 연관된 물리적 안정은 오직 창조의 주(主)고안건축가가 소유한 거의 무한한 지혜로 인해서만 자연 속에 제시되어 있다. 초월 지혜보다 낮은 그 어떤 것도 것처럼 안정되고 효과적인 유연성을 동시에 갖는 물질 단위들을 결코 설계할 수 없다.

제 10 장. 우주적 비(非)영적 에너지 체계 (물질 마음 체계)

42:10.1 (480.4) 파라다이스 단일소의 절대성으로부터 공간 잠재력의 절대성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인 조화우주 실체의 끝없는 범위는,—공간 잠재력으로 숨겨져 있고, 단일소로 계시되며, 개재하는 조화우주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비(非)영적 실체들에서의 일정한 관계성의 진화를 암시한다. 이 영원한 에너지 순환주기, 우주들의 아버지 안에서 순환회로를 이루고 있는 것은 절대적이고, 절대적 존재이며, 사실이나 가치 어느 면에서도 팽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적 아버지는—언제나처럼—지금도 시간-공간의

언제까지나-확장하는 장(場)에서 자아-실현하고 계시며,
그리고 시간-공간-초월되는, 의미들, 삶의 체험적 투쟁과
개인적 마음을 통한 생생하고 성스러운 영의 전반적-
통제에 에너지-물질이 점진적으로 종속 존재가 되는,
변화하는 관계성의 장(場)에서 자아-실현을 하고 계신다.

42:10.2 (480.5) 우주 비(非)영적 에너지들은 다양한 차원에 있는
비(非)-창조자 마음의 살아있는 체계로 재(再)연관되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42:10.3 (480.6) 1. 전(前)보조-영 마음들. 마음의 이 차원은
무(無)체험하는 것이며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서
주(主)물리통제자들에 의해 돌봄을 받는다. 이것은 기계적
마음, 물질 생명의 가장 원시 형태들의 가르칠 수 없는
지능이지만, 그러나 가르칠 수 없는 마음은 원시 행성식물
생명체외에도 많은 차원에서 기능한다.

42:10.4 (481.1) 2. 보조-영 마음들. 이것은 물질적 마음의 가르칠
수 있는 차원(기계적이 아닌)에 있는 그녀의 일곱 보조
마음-영들을 통하여 기능하는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사명활동이다. 이 차원에서 물질적 마음은 처음 다섯
보조자들에서 하위-인간적(동물적) 지성으로서; 일곱

보조자들에서 인간적(도덕적) 지성으로서; 마지막 두 보조자들에서 초인간적(중도자) 지성으로서 체험하고 있다.

42:10.5 (481.2) 3. 진화하는 모론시아 마음들—지역우주 상승 생애에서 진화하는 개인성들의 확대하는 의식. 이것은 창조자 아들과 연락에 있는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증여이다. 이 마음 차원은 생명 매체의 모론시아 유형의 조직, 지역우주의 모론시아 힘 감독자에 의해 효력이 발생되는 물질계 그리고 영계의 합성을 의미한다. 모론시아 마음은 모론시아 삶의 570개 차원에 응답하여 다르게 기능하는데, 비교적 높은 달성 차원들에서 조화우주 마음과의 증가되는 연관 능력을 나타낸다. 이것은 필사 창조체들의 진화 과정이지만, 그러나 모론시아 계층의 마음은 또한, 우주 아들과 우주 영에 의하여 지역 창조체들의 비(非)모론시아 자녀들에게 증여된다.

42:10.6 (481.3) 조화우주 마음. 이것은 7중으로 다양하게 된 시간과 공간의 마음, 하나의 초우주에 관계하는 각각의 일곱 주(主) 영들에 의해 베풀어지는 하나의 위상이다.

조화우주 마음은 모든 유한-마음 차원들을 둘러싸며
체험적으로는 최극 마음의 진화적-신(神) 차원들과
체험적으로 조화-협동하고 그리고 실존하는 절대
마음차원들—공동 행위자의 직접적 순환회로—과
초월적으로 조화-협동한다.

42:10.7 (481.4) 마음은 파라다이스에서는 절대적이다;
하보나에서는 아(亞)절대적이다; 오르본톤에서는
유한하다. 마음은 언제나 다양한 에너지 체계에 더해진
살아있는 사명활동의 현존-활동을 항상 암시하며, 이것은
모든 차원들에서 그리고 모든 종류의 마음들에서
참말이다. 그러나 조화우주 마음을 지나면 비(非)영적
에너지와 가지는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하보나 마음은 하위-절대이지만
초(超)진화이다; 실존적-체험적 존재인, 그것은 너희에게
게시된 어떤 다른 개념보다도 더 아(亞)절대에 가깝다.
파라다이스 마음은 인간의 납득을 벗어난다; 그것은
실존적이고 비(非)영적이며 비(非)시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이들 차원들 전체는 공동 행위자의
우주적 현존에 의해—파라다이스에 있는 마음의 하느님의
마음-중력 장악에 의해—드리워져 있다.

제 11 장. 우주 기능구조

42:11.1 (481.5) 마음의 평가와 인식하면서 우주가 기계적이지도 마술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것은 마음의 창조이며 그리고 법칙의 기능구조이다. 그러나 실천적인 적용에서, 자연의 법칙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이원적(二元的) 영역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체 안에서 그것들은 하나이다.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모든 물질화의 시원적 원인이며 동시에 모든 영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아버지이다.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하보나-바깥 우주들 에서 오직 순수 에너지와 순수 영으로서만—생각 조절자 그리고 다른 비슷한 단편(斷片)화 존재로서—개인적으로 나타난다.

42:11.2 (481.6) 기능구조들이 전체 창조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우주들의 우주는 전적으로 마음으로 계획되고 마음으로 만들고 마음으로 관리-운영된다. 그러나 유한 마음에서의 과학적 방법에 비하여 우주들의 우주의 신성한 기능구조는 모두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무한 마음이 지배하는 흔적조차도 식별할 수 없다. 이는 창조하고 통제하고 유지하는 마음이 물질적 마음도 아니요, 창조체 마음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성한

실체인 창조자 차원에서 그리고 그로부터 기능하는 영-마음이다.

42:11.3 (482.1) 우주 기능구조 안에서 마음을 식별하고 발견하는 능력은 그러한 관찰 과제에 종사하는 마음의 능력과 범위 그리고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시간과 공간의 에너지들로부터 조직된 시간-공간 마음들은 시간과 공간의 기능구조에 종속된다.

42:11.4 (482.2) 운동과 우주 중력 작용은 우주들의 우주의 미(未)개인적인 시간-공간 기능구조의 양면이다. 영과 마음 그리고 물질에 응답하는 중력 차원은 시간과는 전혀 독립적이지만, 오직 실체의 참된 영 차원들만이 공간(비(非)영적)에 대해 독립적이다. 우주의 더 높은 마음 차원—영-마음 차원—역시 비(非)공간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 마음처럼 그러한 물질적 마음 차원은 우주 중력의 상호작용에 응답을 보이는데, 이 응답은 오직 영 정체화구현과 비례되어 잃어버린다. 영-실체 차원들은 그들의 영 내용물로서 식별되며, 시간과 공간 속의 영성화는 직선-중력 응답에 반비례하여 가늠된다.

42:11.5 (482.3) 직선-중력 응답은 비(非)영적 에너지에 대한 양적(量的) 측정이다. 모든—조직화된 에너지—질량은 운동과 마음이 그 위에 작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 장악력에 종속한다. 내부-원자 응집의 기세가 미세조화우주의 짧은-범위의 기세인 것처럼 직선 중력은 거대조화우주의 짧은-범위의 응집하는 기세이다, 물리적 물질화를 이루는, 그리고 조직화되어 소위 물질이라 불리는 에너지는, 직선-중력 응답에 영향을 주지 않고는 공간을 지나갈 수 없다. 그러한 중력 응답이 질량에 정비례하지만, 중간에 개재하는 공간에 의해 너무 변경되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표현하면 대략 비슷해진다. 중력 활동과 그에 대한 모든 응답들을 중화시키려고 작용하는 수많은 초물질적 기세들의 반(反)중력 영향들이 그 안에 현존하기 때문에 공간이 결국에는 직선 중력을 정복한다.

42:11.6 (482.4) 극도로 복잡하고 고도의 자동적-모습으로 나타나는 조화우주 기능구조들은 기원적이고 또는 창조적인 깃드는 마음의 현존을 그 기능구조 스스로의 본성과 역량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우주차원의 그 어떤 그리고 모든 지능체에게 항상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비교적 낮은 계층의 창조체들에게 비교적 높은 우주 기능구조들이 마음이 없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한 결론에 대해 가능한 예외는 오직 명백하게 자아-유지하는 우주의 놀라운 현상에서 마음 작용함을 관련짓는 것이다—그러나 그것은 실재적 체험의 문제라기보다는 철학의 문제이다.

42:11.7 (482.5) 마음이 우주를 조화-협동시키기 때문에, 기능구조들의 고착성은 실존하지 않는다. 조화우주 자아-유지와 연관된 점진적인 진화의 현상은 우주적이다. 우주의 진화하는 능력은 자발성의 무한 속에서 고갈되지 않는다. 조화로운 합일을 향한 진보, 언제까지나 증가하는 관계의 복잡성 위에 포개지는 성장하는 체험적 합성은 오직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다스리는 마음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다.

42:11.8 (482.6) 어떤 우주 현상과 연관하는 우주 마음이 높을수록, 낮은 유형의 마음은 그것을 발견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리고 우주 기능구조를 만든 마음은 창조적인 영-마음(나아가 무한자의 마음작용)이기 때문에, 우주의 낮은 차원의 마음으로는 결코 발견하거나 식별될 수 없다,

더구나 전체 중에서 가장 낮은 마음인 인간에 의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진화하는 동물 마음은, 하느님-찾는 것이 본성적이지만, 하느님을-아는 것은 혼자서 그리고 그 자체에서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제 12 장. 원형들과 형태—마음 지배

42:12.1 (483.1) 기능구조들의 진화는 창조적 마음의 보이지 않는 현존과 지배를 암시하고 나타낸다. 자동적인 기능구조들을 생각하고 계획하며 창조하는 인간적 지성의 능력은 행성에서의 지배적 영향력으로서 인간 마음의 우월하고 창조적이며 의도적인 본질특성들을 실증한다. 마음은 항상 다음을 향하여 뻗어간다:

42:12.2 (483.2) 1. 물질적 기능구조의 창조.

42:12.3 (483.3) 2. 숨겨진 신비의 발견.

42:12.4 (483.4) 3. 멀리 있는 지역의 탐험.

42:12.5 (483.5) 4. 정신 체계의 계통 형성.

42:12.6 (483.6) 5. 지혜 목표의 달성.

42:12.7 (483.7) 6. 영 차원의 성취.

42:12.8 (483.8) 7. 신성한 운명들—최극, 궁극, 그리고 절대—의 성취.

42:12.9 (483.9) 마음은 항상 창조적이다. 개별 동물, 필사자, 모론시아 존재, 영 상승자, 또는 최종 달성자의 마음 자질은 살아있는 창조체 정체성에 적합하고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몸체를 생산하는 능력이 언제나 충분하다. 그러나 개인성의 현존 현상이나 혹은 정체성의 원형틀은, 그것만으로도, 물리적, 마음적, 또는 영적 에너지의 현시활동이 아니다. 개인성 형태는 살아있는 존재의 원형틀 양상이다; 그것은 에너지들의 배열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것이, 생명과 운동을 더하여, 창조체 실존의 기능구조이다.

42:12.10 (483.10) 심지어 영 존재들도 형태를 가지며, 이들 영 형태(원형틀)는 실제이다. 심지어는 가장 높은 유형의 영 개인성들도—유란시아 필사자 몸과 모든 면에서 유사한 개인성 현존—형태를 갖는다. 일곱 초우주에서 마주치는 거의 모든 존재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일반법칙에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생각 조절자들은 그들의 필사자 연관-동료의 생존되는 혼과 융합할 때까지 형태가

없는 듯하다. 단독 메신저,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 무한한 영의 개인 도움자, 중력 메신저, 초월 기록자, 그리고 특정 존재들도 역시 찾아낼 수 있는 형태가 없다. 그러나 이들은 대표적인 소수의 예외이다; 거의 대부분은 진정한 개인성 형태, 개별적인 특징이 있고, 식별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42:12.11 (483.11) 조화우주 마음의 연락과 보조 마음-영들의 사명활동은 진화하는 인간 존재를 위해 합당한 물리적 신체를 진화시킨다. 마찬가지로 모론시아 마음도 모든 필사 생존자에 맞도록 모론시아 형태를 개별화한다. 필사자의 몸이 각 인간 존재마다 고유하고 특징이 있는 것처럼, 모론시아 형태도 매우 개별적이며 그것을 다스리는 창조적 마음에 상응하는 특징적이다. 어떤 두 사람의 몸이 다른 것처럼 두 모론시아 형태도 같지 않다.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은 그것으로서 모론시아 생명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차별화 되지 않은 모론시아 물질을 후원하고, 동반하는 세라핌천사들이 그것을 가져온다. 그리고 모론시아 삶 이후에도, 영 형태들이 그들 각자의 영-마음 내주자에 따라 동등하게 다채롭고 개인적이며 특징적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42:12.12 (483.12) 물질세계에서의 너희는 몸이 영을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육체를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물질적인 눈은 정말로 영-탄생 혼의 창문이다. 영은 설계자이고, 마음은 고안건축자이며, 몸은 물질적 건물이다.

42:12.13 (484.1) 물리적, 영적, 그리고 마음적 에너지는, 그것만으로 그리고 그 순수한 상태에서는, 현상적 우주들의 실재물로서 충분하게 상호작용 하지는 않는다. 파라다이스에서는 이 세 에너지들이 조화-협동하고, 하보나에서는 조화-협동되고, 반면에 유한 활동의 우주 차원에서는 물질적, 마음적, 그리고 영적 지배의 모든 범위들이 서로 마주치게 될 수밖에 없다. 시간과 공간의 비(非)개인적 상황에서는, 물리적 에너지가 우세해 보이지만, 그러나 또한 목적의 신성과 행동의 최극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면서 영-마음이 기능하는 것이 나타나며, 그에 따라 더욱 밀접하게 영 위상이 지배하기 시작 한다; 궁극 차원에서는 영-마음이 거의 완벽하게 지배한다. 절대 차원에서는 반드시 영이 지배한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빠져나온 그곳에서부터, 신성한 영 실체가 제시되어 있는 그 어느 곳이던지, 실제적 영-마음이 기능하는 그 어느

때던지, 영 실체와 짝을 이루는 물질적 또는 물리적 부분이
항상 만들어지도록 나아간다.

42:12.14 (484.2) 영은 창조적인 실체이다; 물리적 부분은 영
실체의 시간-공간 반영, 영-마음의 창조적 행동의 물리적
반향이다.

42:12.15 (484.3) 마음은 우주적으로 물질을 지배하며,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다음에는 영의 궁극적 전반적-통제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리고 필사자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 자유로이
그 스스로를 영의 방향지도를 따르는 것만이, 최극자,
궁극자 그리고 절대자: 곧 무한자의 영원한 영 세계에서의
불멸의 자녀로서 필사자 시간-공간 실존이 생존하는 것을
바랄 수 있다.

42:12.16 (484.4) [네바돈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막강한 메신저에
의해 가브리엘의 요청에 따라 제시되었음]

제 43 편 별자리

43:0.1 (485.1) 유란시아는 일반적으로 네바돈의 놀라시아덱에서
사타니아의 606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바돈이라는
지역우주의 100개 별자리들 중의 하나인, 놀라시아덱

별자리 안에 위치한, 사타니아 지역체계에서 606번째로 거주민이 사는 세계라는 의미이다. 별자리들은 지역우주의 1차 부분들인데, 그것들의 통치자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지역체계들을 구원자별에 있는 지역우주의 중앙 관리-행정에 연결시키며 반영성에 의해서 유버사에 있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초(超)관리-행정에 연결시킨다.

43:0.2 (485.2) 너희 별자리의 정부는 771개 고안건축 구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군(群) 안에 자리잡고 있는, 가장 중앙에 있고 가장 거대한 것이며 이것이 놀라시아텍의 지고자인 별자리 아버지의 관리-행정 본부인 에덴시아이다. 에덴시아 자체는 너희가 있는 세계보다 약 100배에 이른다. 에덴시아를 감싸고 있는 70개 주요 구체들은 유란시아보다 약 10배에 가까운 반면, 이 70개 세계들 각각의 주위를 회전하는 10개 위성들은 유란시아의 크기와 거의 같다. 이 771개 고안건축 구체들은 다른 별자리들의 그것들과 크기가 거의 같다.

43:0.3 (485.3) 에덴시아의 시간 계산과 거리 측정은 구원자별의 그것들과 같으며, 우주 수도의 구체들과 비슷한데, 별자리

본부 세계들은 모든 계층의 천상의 지능체들로 충분하게 공급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개인성들은 우주 관리-행정과 관련하여 설명된 것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43:0.4 (485.4) 감독자 세라핌천사들, 지역우주 천사들 중 세 번째 계층이 별자리들에서의 봉사에 배정되어 있다. 그들은 수도 구체들 위에 자기들의 본부를 두고 있으며 돌고 있는 모론시아-훈련 세계들을 광범위하게 돌아본다. 놀라시아덱 안에서 70개 주요 구체들을 비롯하여 700개 소규모 위성들에는 별자리의 영구적인 시민들인 유니비타시아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 모든 고안건축 세계들은, 그들 대부분은 계시되지 않고 있지만, 효과적인 스피롱가와 아름다운 스포르나기아를 포함하는 비교적 큰 부분을 위해 다양한 집단의 원주민 생명에 의해 충분하게 관리-운영된다. 너희가 짐작할 수 있듯이, 별자리들의 모론시아 삶은 모론시아-훈련 체제 안에서 중간 지점이 되기에 그에 따라서, 전형적이면서도 또한 이상적이다.

제 1 장. 별자리 본부

43:1.1 (485.5) 에덴시아에는 모론시아 생명을 지니고 있고 영적인 영광이 널리 펼쳐진 물리적 물질의 광대한 산맥인

매혹적인 고지들이 많이 있지만, 유란시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울퉁불퉁한 산맥은 그곳에 없다. 그곳에는 수 만 개의 빛나는 호수들과 수백 만 개의 연결된 냇물들이 있지만, 큰 바다도 없고 급류가 흐르는 강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고지들에만 이 표면적인 냇물들이 없다.

43:1.2 (486.1) 에덴시아의 물을 비롯하여 비슷한 고안건축 구체들은 진화적인 행성들의 물과 다름이 없다. 그러한 구체들의 물은 표면에 흐르는 동시에 지하에도 흐르며, 습기가 계속 순환한다. 에덴시아는 운반되는 주요 경로가 대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다양한 물 경로들을 따라 경작될 수 있다. 영 존재들은 구체의 표면 위를 자연스럽게 여행할 수 있는 반면, 물질적 존재들은 공중을 통행하여 움직이기 위해 물질적인 그리고 반(半) 물질적인 수단을 이용한다.

43:1.3 (486.2) 에덴시아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세계들에는 진짜 대기가 있는데, 그러한 고안건축의 창조계들의 특징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3개-기체 혼합이며, 유란시아 대기의 두 요소를 체현하고 그리고 모론시아 창조체들의 호흡에 맞는 모론시아 기체가 더해진다. 그러나 이 대기가

물질적인 동시에 모론시아적인 반면, 거기에는 폭풍이나 태풍이 없으며; 여름이나 겨울도 없다. 대기 불안과 계절 변화가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창조된 이 세계들에서는 야외도 장식할 수 있다.

43:1.4 (486.3) 에덴시아의 고지들은 거대한 물리적 형태들을 하고 있으며, 그 아름다움은 그 길이와 폭 전체에 많이 퍼져있는 생명의 끝없는 풍성함으로 장식되어 있다. 좀 고립된 약간의 구조물들을 제외하고, 이 고지들은 창조체들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하나도 담고있지 있다. 물질적인 그리고 모론시아적인 장식물들은 거주하는 지역에 제한되어 있다. 비교적 낮은 고지들은 특별한 거주민들의 집터이며 생물 그리고 모론시아 예술에 의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43:1.5 (486.4) 일곱 번째 고지 산맥의 정상에는 에덴시아의 부활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상승하는 2차 변형 계층의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깨어난다. 창조체 재조립이 일어나는 이 방들은 멜기세덱들의 감독을 받는다. 에덴시아에 있는 접수 지역들 중 첫 번째 역시 (구원자별에 가까운 멜기세덱 행성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부활실들을 갖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상승하는 변형된 계층의 필사자들이 재조립된다.

43:1.6 (486.5) 멜기세덱들 역시 에덴시아에 있는 특별한 두 대학들을 유지한다. 하나는 응급 학교인데, 사타니아 반역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연구하는 일을 한다. 다른 하나는 증여 학교인데, 놀라시아덱 세계들 중의 하나에서 미가엘이 자신의 최종적 증여를 일으켰던 사실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통달하는 일에 배치어져있다. 두 번째의 이 대학은 거의 40,000년 전에 세워졌는데, 미가엘이 유란시아가 자신의 최종 증여를 위해 선택되었음을 알리자마자 세워졌다.

43:1.7 (486.6) 에덴시아의 접수 지역인 유리 바다는 행정-관리적 중심 근처에 있으며 본부 원형극장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 지역 주변에는 별자리 관련사들의 70개 분야들을 위한 통치 중심들이 있다. 에덴시아의 절반은 70개 삼각(三角) 부분들로 나뉘어 있는데, 그 경계선들은 그것들의 각각의 부분들의 본부 건물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 구체의 나머지는 하나의 거대한 자연공원, 하느님의 동산들이다.

43:1.8 (486.7) 너희가 주기적으로 에덴시아를 방문하는 동안, 전체 행성을 너희가 검열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시간의 대부분은 너희의 현재 거주하는 세계의 그것과 숫자가 일치하는 행정-관리적 삼각지대 속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입법회의에 관찰자로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43:1.9 (486.8) 에덴시아에서 상승하는 거주자들에게 배정된 모론시아 지역은 36번째 삼각지에 자리한 최종자의 본부에 인접된 35번째 삼각지대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유니비타시아의 일반 본부들은 모론시아 시민들의 거주 예정지에 바로 인접한 34번째 삼각지대의 중앙-지역에 있는 거대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열로 볼 때, 천상의 생명의 적어도 70개 주요 부분들의 조화를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이 70개 삼각형 지역들 각각은 모론시아 훈련의 70개 주요 구체들 중 어떤 하나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

43:1.10 (487.9) 에덴시아 유리 바다는 둘레가 약 100마일에 이르고 깊이가 약 30마일에 이르는 하나의 거대한 수정이다. 이 장엄한 수정은 모든 운송 세라핌천사들과

구체 밖의 지점들로부터 도착하는 다른 존재들을 위한 수신소 역할을 한다; 그러한 유리 바다는 운송 세라핌천사가 도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43:1.11 (487.2) 이러한 계층의 수정 마당은 거의 모든 고안건축 세계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것은 장식하는 가치 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 되는데, 연관된 집단들에게 초우주 반영을 제시하는 일에 그리고 공간의 흐름들을 변형시키고 또 유입되고 있는 다른 물리적-에너지 흐름들을 적응하기 위한 에너지-변환 기법 안에서 한 요소로서 활용된다.

제 2 장. 별자리 정부

43:2.1 (487.3) 별자리들은 지역우주의 자율적인 단위들인데, 각각의 별자리는 그 자체의 입법 법령들에 따라서 관리-운영된다. 네바돈의 법정들이 우주 관련사들에 대한 재판을 벌일 때, 모든 내부 문제들은 대상이 되는 별자리에서 통용되는 법에 따라 판결된다. 구원자별의 이사법 판결은 별자리들의 입법 법령들과 함께 지역 체계들의 관리-행정자들에 의해 실행된다.

43:2.2 (487.4) 별자리들은 그렇게 해서 입법 단위들로서 기능하는 반면, 지역체계들은 집행 또는 시행 단위들로서의 역할을 한다. 구원자별 정부는 최고 사법 그리고 조화-협동 기관이다.

43:2.3 (487.5) 최고 사법 기능이 지역우주의 중앙 관리-행정에 있는 반면, 보조적이지만 주요한 두 개의 법정인 각 별자리의 본부, 멜기세덱 협의회 그리고 지고자의 법원에 존재한다.

43:2.4 (487.6) 사법적인 모든 문제들은 멜기세덱들의 협의회에서 먼저 조사를 받는다. 진화하는 행성들과 체계 본부 세계들에서 특정한 필수적 체험을 이미 가졌던 이 계층 중에서 열 두 명이 증거를 검사하고 해명을 검토하며 잠정적인 판결을 내릴 권한을 갖는데, 그것들은 지고자, 통치하는 별자리 아버지의 법정으로 전해진다. 후자(後者) 법정의 이 필사자 부서는 일곱 명의 판사들로 구성되는데, 그 모두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이다. 너희가 우주 안에서 점점 더 올라갈수록, 너희는 너희와 같은 종류인 그들에 의해 더욱 확실하게 판결을 받는다.

43:2.5 (487.7)

별자리 입법부는 세 분야로 나뉘어 있다. 별자리의 입법 계획은 상승하는 자들의 비교적 낮은 의사당, 한 명의 최종자에 의해 주관되고 1,000명의 대표 필사자들로 구성된 한 집단에서 시작된다. 각각의 체계는 이 심의 기관 안에 소속될 10명의 성원들을 지명한다. 에덴시아에서는 이 기구가 현재 충분히 구성되어 있지 않다.

43:2.6 (487.8)

입법부 의원들의 중앙-집무실은 세라핌천사 무리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다른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집단의 총원은 100명이며 별자리 안에서 기능할 때 그러한 존재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주관하는 감독하는 개인성들에 의해 지명된다.

43:2.7 (488.1)

별자리 입법부 의원들로 구성된 자문기관 또는 최고 기관은 동료들의 의사당—신성한 아들들의 의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체들은 지고자 아버지들 그리고 10번에 의해 선택된다. 오직 특별한 체험을 가진 아들들만이 이 상원(上院)에서 봉사할 수 있다. 이것은 입법 의회의 두 하부 부서들 모두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봉사하는 사실-발견 그리고 시간절약 집단이다.

43:2.8 (488.2)

입법부 의원들의 병합된 협의회는 별자리 심의기관의 독립된 이들 지부들로부터 온 세 명의 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치하는 하위(下位) 지고자에 의해 주관된다. 이 집단은 모든 법령의 최종 형식을 인가하며 방송자들에 의한 그것들의 공표를 허락한다. 이 최고위원회의 허락은 입법된 법령들이 영역의 법이 되게 한다; 그들의 활동은 최종적이다. 에덴시아의 입법 선언들은 놀라시아텍 전체의 기초적 법을 구성한다.

제 3 장. 놀라시아텍의 지고자들

43:3.1 (488.3)

별자리들의 통치자들은 지역우주 아들관계의 보론다텍 계층에 속한다. 우주 안에서 별자리 통치자들로서 또는 다른 것들로서 활동적인 임무에 임명될 때, 이 아들들은 지고자들로 알려지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최고의 행정-관리적 지혜를 체현하는 동시에 하느님의 지역우주 아들들의 모든 다른 계층들의 가장 멀리 내다보고 지능적인 충성심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개인적 고결한-순수성과 그들의 집단 충성심은 한 번도 의심을 받은 적이 없으며; 보론다텍 아들들에 대한 불만이 네바돈에서 발생한 적이 없었다.

43:3.2 (488.4) 적어도 세 명의 보론다텍 아들들은 가브리엘에 의해 네바돈 별자리들 각각의 지고자들로서 임명되어 있다. 이 세 명 중에서 주관하는 성원은 별자리 아버지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두 연관-동료들은 선임 지고자와 후임 지고자로 알려져 있다. 별자리 아버지는 표준시간으로 10,000년 동안 통치하는데(유란시아 시간으로는 약 50,000년), 그 전에 같은 기간 동안 후임 동료로서 그리고 선임 동료로서 봉사한 적이 있다.

43:3.3 (488.5) 시편 기자는 에덴시아가 세 명의 별자리 아버지들에 의해 통치되었던 것을 알았으며 따라서 그들의 통치를 복수형으로 이야기하였다: “하나의 강이 흐르고 그 물줄기들은 하느님의 도성, 지고자들의 장막들의 가장 거룩한 곳을 찬란하게 장식할 것이다.”

43:3.4 (488.6) 여러 시대들이 흐르는 동안 유란시아에서는 다양한 우주 통치자들에 대해 큰 혼동이 있어 왔다. 후대의 많은 선생들은 그들이 가진 희미하고도 불분명한 부족 신(神)들을 지고자 아버지들과 혼동하였다. 더욱 후대에, 히브리인들은 이 천상의 통치자들을 하나의 혼합된 신(神)으로 섞어 버렸다. 한 선생은 지고자들이 최극

통치자들이 아닌 것을 납득하였으며, 그래서 그는 “지고자의 비밀한 장소에 거하는 그가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유란시아의 기록들 안에서는 “지고자”라는 말이 정확하게 누구를 의미하는지 매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문제들을 충분히 납득하였다. 그는 “그 지고자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통치하며 누구든지 그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라고 말하였다.

43:3.5 (488.7) 별자리 아버지들은 거주하는 행성의 개별존재들에게는 거의 연관하지 않지만, 그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모든 필사 종족과 국가 집단에 관해 매우 깊이 관여하는 별자리들의 입법(立法) 기능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한다.

43:3.6 (489.1) 비록 별자리 체제가 너희와 우주 관리-행정 사이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개별존재로서의 너희는 대개 별자리 정부와 거의 관련이 없을 것이다. 너희의 큰 관심사는 일반적으로 지역체계, 사타니아에 중심을 둘 것이지만; 일시적으로, 유란시아는 별자리 통치자들에게 가깝게

관련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특정한 체계와 행성의 상태가 루시퍼 반란으로부터 조성되기 때문이다.

43:3.7 (489.2) 에덴시아 지고자들은 루시퍼 분리가 일어났을 때 반역한 세계들에서의 행성 권한의 특정한 위상을 획득하였다. 그들은 이 힘을 계속 발휘해 왔으며,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오래 전부터 이 불안정한 세계들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이 독점권을 확립하였다. 그들은 루시퍼가 살아있는 한 이 확립된 관할권을 의심할 여지없이 계속 행사할 것이다. 이러한 권한의 대부분은 대개 충성스러운 체계에서는 체계 주권자에게 주어진다.

43:3.8 (489.3) 그러나 유란시아가 지고자들에게 특별히 관련된 면에는 또 다른 것이 있다. 창조자 아들인 미가엘이 그의 최종 증여 임무에 들어갔을 때, 루시퍼의 후임자가 지역체계에서 충분한 권한을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가엘 증여와 관련된 모든 유란시아 관련사들은 놀라시아텍의 지고자들에 의해 즉각적으로 관리되었다.

제 4 장. 산상 집회—충심으로 늘 계신이

43:4.1 (489.4) 가장 거룩한 집회 동산은 충심으로 늘 계신이, 에덴시아에서 기능하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대표자의 거주지이다.

43:4.2 (489.5) 이 충심으로 늘 계신이는 파라다이스의 삼위일체 아들이며 본부 세계가 창조된 이래 임마누엘의 직접적인 대표자로서 에덴시아에 제시되어 왔다. 충심으로 늘 계신이는 별자리 아버지들에게 조언하기 위해 그들의 오른편에 항상 있지만, 요청되지 않는 한에는 결코 충고를 제시하지 않는다. 파라다이스의 높은 아들들은 그러한 권역들의 활동하는 통치자들의 청원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우주의 관련사들을 수행하는 일에도 결코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합으로 늘 계신이는 창조자 아들과 상관되고, 충심으로 늘 계신이는 별자리의 지고자와 상관된다.

43:4.3 (489.6) 에덴시아 충심으로 늘 계신이의 거주지는 특별 우주 통신 그리고 지성의 파라다이스 체계의 별자리 중앙이다. 이 삼위일체 아들들은, 하보나 그리고 파라다이스 개인성들로 구성된 그들의 참모들과 함께, 감독하는 연합으로 늘 계신이와 연락하여, 우주들에 두루

그리고 심지어는 하보나와 파라다이스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계층과 직접적이고도 계속적인 통신을 유지한다.

43:4.4 (489.7) 최고 거룩 산은 멋지고 아름답고 기묘하게 꾸며져 있지만, 파라다이스 아들의 실재적인 거주지는 지고자들의 중앙 거주지와 보론다텍 아들들의 거주 설비를 포함하는 주변의 70개 구조물들과 비교하기에 알맞다. 이 설비들은 오로지 거주지로서만 사용된다; 그것들은 별자리의 관련사들이 처리되는 광대한 행정-관리적 본부 건물들과 전반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43:4.5 (489.8) 에덴시아에 있는 충심으로 늘 계신이의 거주지는 지고자들의 이 거주지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파라다이스 집회의 동산”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보나의 10억 개 완성 세계들을 통하여 그리고 파라다이스의 형언할 수 없는 환희를 향하여 진보하는 필사자들의 길고도 흥미 있는 여행에 대해 이 파라다이스의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위해 헌납된 이 고지대에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주기적으로 모인다. 그리고 모론시아 필사자들이 중앙우주 안에서 기원된 다양한 집단의 개인성들과 더욱

충만하게 친하게 되는 것은 바로 산상 집회의 이 특별한 모임에서이다.

43:4.6 (490.1) 한 때 사타니아의 주권자였던 불충한 루시퍼는, 증가되는 판결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면서, 지역우주의 정부 계획안에 모든 우월한 계층의 아들관계를 제거시키려고 꾀하였다. 그는 가슴속으로 결심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나의 보좌를 하느님의 아들들 위로 승진시킬 것이다; 나는 북쪽의 집회 동산 위에 앉을 것이다; 나는 지고자와 같이 되겠다.”

43:4.7 (490.2) 100명의 체계 주권자들은 별자리의 복지에 대해 숙고하는 에덴시아 비밀회의에 주기적으로 참석한다. 사타니아 반역 이후에 예루셈의 최고의 반역들은 그것들이 전에 발생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에덴시아 협의회에 늘 맡겨졌다. 그리고 유란시아에 미가엘이 증여되기 이전까지는 그리고 그 뒤에 네바돈 전체에 걸친 무제한적 주권을 행사하기 이전까지는 이 오만한 뻔뻔스러운 행위를 멈출 방법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 날 이후로, 이 죄의 선동자들은 지역체계 주권자들의 에덴시아 협의회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

43:4.8 (490.3) 옛날 선생들이 이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들이 지고자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게 되는 날이 있었고, 사탄 역시 와서 그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이 그 안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사실적인 설명이다.

43:4.9 (490.4) 그리스도가 승리한 이후로, 놀라시아덱 전체에서는 죄와 반란이 제거되었다. 미가엘이 육신적인 죽음을 맞기 얼마 전에, 몰락한 루시퍼의 동료인 사탄은 그러한 에덴시아 비밀회의에 참여하려고 꾀하였지만, 대반역자를 반대하는 정서의 응결이, 동정심의 문들을 거의 보편적으로 닫아버려서 사타니아 반대자들이 설 자리가 발견되지 않을 정도의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악을 받아들이는 열린 문이 존재하지 않게 되자, 죄를 즐기는 기회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전체 에덴시아의 가슴의 문들이 사탄에게 반대하여 닫혔으며; 그는 연관된 체계 주권자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거부되었으며, 사람의 아들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때였다.

43:4.10 (490.5) 루시퍼의 반란 이후로 하나의 새로운 구조가 중심으로 늘 계신이의 주거지 가까이에 제공되었다. 이 임시 건물은 지고자 연락관의 본부인데, 그는 파라다이스 아들과 가깝게 연락하면서, 죄와 반역에 대한 시대의 명령의 정책과 태도에 관하여 모든 문제들에서 별자리 정부에 대한 충고자로서 기능한다.

제 5 장. 루시퍼 반란 이후의 에덴시아 아버지들

43:5.1 (490.6) 에덴시아에서의 지고자들의 교대는 루시퍼 반란이 있을 때 중지되었다. 우리는 지금 그때 근무하던 동일한 통치자들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는 이 통치자들이 루시퍼 그리고 그의 연관-동료들이 최종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43:5.2 (490.7) 아무튼, 별자리의 현 정부는 보론다텍 계층의 12 아들들을 포함할 정도로 확대되어 왔다. 이 12명은 다음과 같다:

43:5.3 (490.8) 1. 별자리 아버지. 놀라시아덱의 현 지고자 통치자는 네바돈의 보론다텍 계열의 617,318번이다. 그는 자신의 에덴시아 임무들을 맡기 전에 우리 지역우주에 두루 많은 별자리들에서 봉사하였다.

43:5.4 (490.9) 2. 선임 지고자 연관-동료.

43:5.5 (491.1) 3. 후임 지고자 연관-동료.

43:5.6 (491.2) 4. 지고자 충고자, 미가엘이 주(主) 아들의 지위를 달성한 이후 그의 직접적인 대표자.

43:5.7 (491.3) 5. 지고자 집행자, 루시퍼 반란 이후로 계속 에덴시아에 주둔한 가브리엘의 개인적 대표자.

43:5.8 (491.4) 6. 지고자 행정 관찰자들의 우두머리, 사타니아의 고립된 세계들에 주둔한 보론다텍 관찰자들의 지도자.

43:5.9 (491.5) 7. 지고자 심판관, 별자리 안에서 반란의 결과로 일어난 모든 어려움들을 조절하는 의무를 떠맡은 보론다텍 아들.

43:5.10 (491.6) 8. 지고자 응급 관리행정자, 사타니아의 반역-고립 세계들에게 놀라시아텍 입법부의 응급 법령을 적용시키는 임무를 부여받은 보론다텍 아들.

43:5.11 (491.7) 9. 지고자 중개인, 별자리의 일상적인 관리-행정과 유란시아에 대한 특별 증여 조절들을 조화시키도록 배정된 보론다텍 아들. 특정의 천사장 활동들과

유란시아에서의 수많은 다른 불규칙한 직무들의 현존은, 예루셈에서의 찬란한 저녁별들의 특별 활동들과 함께, 이 아들의 기능을 필요로 한다.

43:5.12 (491.8) 10. 지고자 법무관, 사타니아 반역에 따라 일어난 혼란이 증대하는 놀라시아덱의 특별 문제들에 대한 조절에 헌신하는 응급 법정의 우두머리.

43:5.13 (491.9) 11. 지고자 연락자, 에덴시아 통치자들에게 배정되었지만 반역과 창조체 불충성에 관계된 문제들의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최상의 경로에 관하여 충심으로 늘 계신이와 함께 특별한 조언자로서 임명된 보론다덱 아들.

43:5.14 (491.10) 12. 지고자 관리인, 에덴시아의 응급 협의회 회장. 사타니아 동란으로 인하여 놀라시아덱에 배정된 모든 개인성들은 응급 협의회에 소속되며, 그들을 주관하는 관리는 비상한 체험을 가진 보론다덱 아들이다.

43:5.15 (491.11) 그리고 이것은 수많은 보론다덱들, 네바돈의 사절(使節)들, 그리고 에덴시아에 역시 거주하는 다른 존재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43:5.16 (491.12) 루시퍼 반란 이후로 항상 에덴시아 아버지들은 유란시아 그리고 사타니아의 다른 고립된 세계들을 특별하게 돌보아 왔다. 오래 전에 그 선지자는 국가들의 관련사에 있어서 별자리 아버지들의 통제하는 손을 감지하였다. “지고자가 국가들에게 그들의 유산을 나누어 줄 때, 그가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킬 때, 그는 민족의 경계선을 두었다.”

43:5.17 (491.13) 모든 격리되거나 고립된 세계는 관찰자로서 활동하는 보론다텍 아들을 갖는다. 그는 국가들의 관련사에 개입하도록 별자리 아버지에 의해 명령받은 때 외에는 행성 관리-행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실재적으로 “사람들의 왕국에서 통치하는”이는 이 지고자 관찰자이다. 유란시아는 놀라시아텍의 고립된 세계들 중 하나이며, 한 명의 보론다텍 관찰자가 칼리가스티아 반역 이후로 항상 행성에 주둔해 왔다.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유란시아에서 반(半) 물질적인 형태에서 사명활동 하였을 때, 그는 그때의 임무에 대해 지고자에게 정중한 경의를 표하였는데, 기록된 것처럼, “그리고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은 지고자의 제사장이었다.” 멜기세덱은 그가 “그리고 너희 적들을 너희 손에 넘긴 지고자에게 복이

있으라.”고 했을 때 이 지고자 관찰자와의 관계를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었다.

제 6 장. 하느님의 동산

43:6.1 (492.1) 체계 수도들은 물질적 구조물들과 광물 구조물들로 특별하게 장식되어 있는 반면, 우주 본부는 영적인 영광이 더욱 반영되어 있지만, 별자리들의 수도들은 모론시아 활동들과 살아있는 최고의 장식물들 중 최고의 수준이다. 별자리 본부 세계들에서는 살아있는 장식물들이 더욱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이 세계들이 “하느님의 동산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생명의 이 우수성—식물 예술—때문이다.

43:6.2 (492.2) 에덴시아의 약 절반은 지고자들의 절묘한 동산들로 정해져 있으며, 이 동산들은 지역우주의 가장 증진된 모론시아 창조체들에 속한다. 이것은 놀라시아텍의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 유별나게 아름다운 장소들이 왜 종종 “에덴동산”이라고 불리는지를 설명해 준다.

43:6.3 (492.3) 이 장엄한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지고자들의 경배 회당이다. 시편 기자는 이것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았음이

분명한데, 이렇게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지고자들의 언덕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깨끗한 손과 순수한 가슴을 가진 자, 자기 혼을 허영심에 들뜨게 하지도 않고 거짓되게 맹세하지도 않은 자가 아니냐.” 이 성소에서 지고자들은 이완-휴식에서의 10일째마다 에덴시아 전체가 최극자 하느님에 대한 예배가 넘치는 깊은 사색에 참여하도록 인도한다.

43:6.4 (492.4) 고안건축의 세계들은 물질적 계층의 생명의 10가지 형태들을 향유한다. 유란시아에는 식물과 동물 생명이 있지만, 에덴시아와 같은 그러한 세계에는 물질적 계층의 생명의 10가지 분야들이 있다. 에덴시아 생명의 이 10가지 분야들을 너희가 볼 수만 있다면, 너희는 아마 곧 처음 세 가지를 식물로 마지막 세 가지를 동물로 분류하겠지만, 너희는 풍부하고 매혹적인 네 가지 형태의 중간에 있는 생명의 본성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43:6.5 (492.5) 동물 생명으로 구분된 것들조차도 진화적인 세계들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형태인데,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이 창조체들의 독특한 성격과 매혹적인 본성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아주

불가능하다. 너희의 상상력으로 도저히 그릴 수 없는 수많은 살아있는 창조체들이 그곳에 있다. 전체의 동물 창조는 진화하는 행성들의 전체 동물 종류들과는 전반적으로 다른 계층을 갖는다. 그러나 이 모든 동물 생명은 가장 지능적이고 정교하게 봉사할 수 있으며, 그리고 다양한 이 종자들은 놀랄 정도로 온유하고 감동적으로 친근하다. 그러한 고안건축의 세계들에는 육식 창조체들이 없으며; 에덴시아 전체에는 살아있는 존재에게 무섭게 할 만한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43:6.6 (492.6) 식물 역시 유란시아의 그것과 매우 다른데, 물질적 그리고 모론시아적 다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적인 성장은 특유의 녹색 특징을 갖지만, 식물 생명에 해당하는 모론시아는 다양한 빛깔과 반영을 갖는 보라색 또는 연보라색이다. 그러한 모론시아 식물은 순전히 에너지 성장이다; 먹었을 때 남는 부분이 없다.

43:6.7 (492.7) 물질적 생명의 10가지 부분들을 자질로서 부여받았는데, 모론시아 변종들은 물론이고, 이 고안건축의 세계들은 물질 그리고 모론시아 구조들의 생물학적 아름다움과 경치의 아름다움에 대한 엄청난

가능성들을 제공한다. 식물 장식과 생물학적 장식의 이
거대한 작업에 있어서 천상의 거장들이 원주민
스포츠나기아들을 지도한다. 너희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활성(活性)이 없는 물감과 생명이
없는 대리석을 소재로 삼지 않을 수 없는 반면, 천상의
거장들과 유니비타시아들은 그들의 개념들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이상들을 포착하기 위해 생명이 있는
물질들을 더 자주 활용한다.

43:6.8 (493.1) 만일 너희가 유란시아의 꽃들과 화초들과
나무들을 즐긴다면, 너희가 에덴시아에 있는 천상의
동산의 아름다운 식물과 장관을 이룬 꽃들로 너희 눈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상의 세계들의 이러한
아름다움에 관한 적합한 개념을 필사자 마음에 전달할 수
있는 설명을 할 힘이 내게는 없다. 정말로 필사자-상승
모험여행을 하는 너희가 이 세계들에 도착하기 전에는
눈으로 그러한 영광을 볼 수 없다.

제 7 장. 유니비타시아

43:7.1 (493.2) 유니비타시아는 에덴시아와 그것에 연관된
세계들, 그들의 감독을 받는 별자리 본부를 감싸는 770개

세계들 전체의 영원한 시민이다.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의 이 자녀들은 물질적 상태와 영적 상태 사이에 실존하는 평면에 구체적으로 투사되지만, 그들은 모론시아 창조체들이 아니다. 에덴시아의 70개 주요 구체들 각각의 원주민들은 서로 다른 눈에 보이는 형태들을 가지며, 모론시아 필사자들은 그들이 1번 세계로부터 70번 세계로 연속적으로 옮겨감에 따라 한 에덴시아 구체로부터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변경할 때마다 유니비타시아의 상승하는 크기에 따라 조율된 모론시아 형태들을 갖는다.

43:7.2 (493.3) 영적으로는 유니비타시아가 비슷비슷 하지만; 지적으로는 필사자가 하는 것처럼 서로 다르며; 형태적으로는 그들이 모론시아 실존 상태와 비슷하고, 70개의 다양한 계층의 개인성으로 기능하도록 창조되었다. 유니비타시아의 이 계층들 각각은 지적 활동의 10개 대(大)변이들을 나타내며, 이 다양한 지적 유형들 각각은 주요 에덴시아 세계들 각각 주변을 도는 10개 위성들 중 어떤 하나에 있는 진보하는 직업적 또는 실천적 사회화구현의 특별 훈련과 문화의 학교들을 주관한다.

43:7.3 (493.4) 이 700개 소(小) 세계들은 전체 지역우주의 활동 속에서 실천적인 교육을 하는 기술적 구체며 모든 종류의 지능 존재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특별한 기술과 기술 지식을 훈련하는 이 학교들은 모론시아 학생들이 이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존재들 중 가장 큰 집단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위해 배타적으로 수행되지는 않는다. 너희가 사회적 문화의 70개 대(大) 세계들 중 어느 하나에 받아들여질 때, 너희에게는 주변을 도는 10개 위성들 각각에 착륙할 수 있는 허가서가 즉시 주어진다.

43:7.4 (493.5) 다양한 우대거류민단 안에서, 상승하는 모론시아 필사자들은 복귀 지도자들 사이에 눈에 띄게 되지만, 유니비타시아는 천상의 거장으로 구성된 네바돈 무리단과 연관된 가장 큰 집단을 대변한다. 오르본톤 전체에서 유버사 아반돈터들을 제외한 하보나-이외 어떤 존재도 기능적 기술과 사회적 적응력 그리고 조화-협동하는 솜씨에 있어서 유니비타시아와 같을 수 없다.

43:7.5 (493.6) 이들 별자리의 시민들은 거장 부대의 실재적인 성원들은 아니지만, 그들은 모든 집단들과 함께 자유롭게

일하며 변천하는 문화의 장대한 기술적 가능성들의 실현을 위해 별자리 세계들을 주요 구체들을 만드는 일에 많이 기여한다. 그들은 별자리 본부 세계들의 제한을 넘어서서 기능하지는 않는다.

제 8 장. 에덴시아 훈련 세계

43:8.1 (493.7) 에덴시아의 물리적 자질과 그 주변을 도는 구체들은 거의 완전하다; 그것들은 구원자별의 구체들의 영적인 장엄함과 전혀 같을 수는 없지만, 그것들은 예루셈의 훈련 세계들의 영광보다는 훨씬 뛰어난다. 이 에덴시아 구체들 전체는 우주적 공간 흐름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얻으며, 물질적인 그리고 모론시아적인 그들의 거대한 힘 체계들은 별자리 중심들에 의해 전문적으로 감독되고 배급되는데, 주(主)물리통제자들과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의 유능한 무리단의 도움을 받는다.

43:8.2 (494.1) 필사자 상승의 에덴시아 시기와 연관된 변형 모론시아 문화의 70개 훈련 세계들에서 보내는 시간은 최종자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상승하는 필사자의 생애 중에서 가장 안정된 기간이다; 이것은 실제로 전형적인

모론시아 삶이다. 너희가 한 주요 문화 세계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길 때마다 다시-맞추어지는 반면, 너희는 동일한 모론시아 육신을 유지하며, 개인성 무의식의 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43:8.3 (494.2) 너희가 에덴시아 그리고 그것에 연관된 구체들에서 머무는 기간은 주로 집단 윤리, 지능적 개인성들의 다양한 우주 그리고 초우주 계층들 사이의 유쾌하면서도 유익한 상호관계의 비밀을 숙달하는 일로 보내어진다.

43:8.4 (494.3) 맨션세계들에서 너희는 진화하는 필사자 개인성의 통일을 완성 한다; 체계 수도에서는 예루셈 시민권을 획득하고 집단 활동들과 조화-협동하는 일들을 단련하는 일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결단을 하게 되지만, 이제 별자리 훈련 세계들에서는 너희의 진화하는 모론시아 개인성의 실제적인 사회화를 성취하게 된다. 숭고한 이 문화적 습득은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우는 데에 있다:

43:8.5 (494.4) 1. 10명의 다양한 동료 모론시아인들과 행복하게 살고 효과적으로 일하는 반면, 그러한 10개 집단들이

100개의 연대로 연관되고 그 다음에는 1,000개의 무리단 안에서 연맹을 이룬다.

43:8.6 (494.5) 2. 지적으로는 모론시아 존재들과 비슷하더라도 다른 모든 면에서는 매우 다른 10명의 유니비타시아와 기쁘게 거하고 진심으로 협동하는 것. 그 다음에 너희는 그것이 다른 10개 무리들과 조화-협동할 때 10명의 이 집단과 함께 기능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1,000명의 유니비타시아의 무리단 안으로 차례로 연방을 이룬다.

43:8.7 (494.6) 3. 동료 모론시아인들 그리고 이들 주인인 유니비타시아 둘 모두에 대한 동시적 조절을 성취하는 것. 지능 창조체들의 어느 정도 다른 집단과 연관하여 긴밀하게 일하는 너희 자신의 계층의 존재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협동하는 능력을 획득하기.

43:8.8 (494.7) 4. 너희 자신과 비슷한 그리고 비슷하지 않은 존재들과 그렇게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반면, 연관된 두 집단들과의 지적 조화를 성취하기 그리고 그들두 집단의 관계적-연합체 모두와 직업적 조절을 이룩하기.

43:8.9 (494.8)

5. 지적 그리고 직업적 차원에서 개인성의 만족할만한 사회화를 달성하는 반면, 계속 감소하는 성급함과 계속 줄어드는 분노를 가지고 비슷한 그리고 약간 다른 존재들과 친숙한 접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능력을 더욱 완전하게 하는 것. 복귀 지도자들은 그들의 집단-놀이 활동들을 통해 후자의 이 달성에 더욱 기여한다.

43:8.10 (494.9)

6. 다양한 이 사회화 기법을 파라다이스-상승 생애의 진보적 조화-협동 촉진에 맞추는 방법; 겉으로는 하찮은 이들 시간-공간 활동 안에 숨겨진 영원한 목표-의미들을 붙잡는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우주적 통찰력을 증강시키는 방법.

43:8.11 (494.10)

7. 그러고 나서, 집단적인 영적 연관과 모론시아 조화-협동을 통해 개인적 자질의 모든 위상들을 증강시키는 데에 그것이 적합하듯이 영적인 통찰력의 동시적 향상과 함께 다중(多重) 사회화의 이들 과정들 전체를 최고조에 달하게 하는 방법.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두 도덕적 창조체들은 동반자 기법에 의한 우주 성취의 개인적 잠재를 오직 두 감절로 만들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달성 그리고 완성 가능성을 거의
곱으로 만든다.

43:8.12 (495.1) 우리는 10명의 동료 모론시아인들과 의 비슷한
연관에 부수되는 10명의 지적으로 다른 개별존재들로
구성된 유니비타시아 가족 집단과 한 모론시아 필사자가
연관하는 것으로 에덴시아 사회화를 묘사해 왔다. 그러나
처음 7개 주요 세계들에서는 오직 한 명의 상승하는
필사자만이 10명의 유니비타시아와 함께 산다. 7개 주요
세계들의 두 번째 집단에서는 두 명의 필사자들이 10명의
원주민 집단 각각과 함께 거주하며, 그런 식으로 계속하여,
7개 주요 구체들의 마지막 집단에서는 10명의 모론시아
존재들이 10명의 유니비타시아와 함께 산다. 너희가
유니비타시아와 어떻게 더 잘 사귀느냐를 배움에 따라,
너희는 너희 동료 모론시아 진보자들과의 너희 관계들
속에서 그러한 증진된 윤리를 실천할 것이다.

43:8.13 (495.2) 상승하는 필사자로서 너희는 에덴시아의 진보
세계들에 머무는 것을 즐길 것이지만, 그러나 체계
본부에서의 너희의 최초 우주 관련사와의 접촉, 그리고
또는 우주 수도의 마지막 세계에서 이들 실체들과 가지는

너희 작별하면서 가진 접촉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 만족감의 개인적 전율을 체험하지는 못할 것이다.

제 9 장. 에덴시아의 시민권

43:9.1 (495.3) 70번 세계를 졸업한 후에,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에덴시아에서 거주하게 된다. 상승하는 인간들은 이제 처음으로 "파라다이스의 집회"에 참여하며 그들이 만났던 최극 삼위일체-기원 개인성들 중 첫 번째인 충심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그것이 묘사되듯이 멀리-퍼지는 그들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43:9.2 (495.4) 에덴시아 시민권의 전성기인, 별자리 훈련 세계들에서 머무는 이 전체 기간은, 모론시아 진보자들을 위한 참된 천상의 행복의 기간이다. 너희가 체계 세계들에 머무는 기간에 두루 너희는 거의 동물에 가까운 존재로부터 모론시아 창조체로 진화하였다; 너희는 영적이기보다는 더 많이 물질적이었다. 구원자별 구체에서 너희는 모론시아 존재로부터 참된 영의 상태로 진화할 것이다; 너희는 물질적이기보다는 더 많이 영적인 지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에덴시아에서는, 상승자들은 그들의 이전(以前) 상태와 미래 신분 사이의 중도자,

진화하는 동물로부터 상승하는 영으로 통과하는 중도자이다. 너희가 에덴시아 그리고 그 세계들에 머무는 전체 기간 동안 너희는 “천사와 비슷한” 상태이다; 너희는 계속적으로 진보하지만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모론시아 지위를 줄곧 유지한다.

43:9.3 (495.5) 상승하는 인간의 이 별자리 체류 기간은 모론시아 진보의 전체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균일하고 안정된 신(新)시대이다. 이 체험은 상승자들의 영-이전(以前) 사회화 훈련을 구성한다. 그것은 하보나의 최종자-이전(以前) 영적 체험과 비슷하며 파라다이스에서의 아(亞)절대-이전(以前) 훈련과 비슷하다.

43:9.4 (495.6) 에덴시아에 있는 상승하는 인간들은 70개의 진보적 유니비타시아 세계들에서 주로 과제들을 수행한다. 또한 그들은 에덴시아 자체에서 다양한 능력들 속에서 봉사하는데, 집단, 종족, 국가, 그리고 행성의 복지와 관련된 별자리 계획과 주로 관련되어 있다. 지고자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의 양육하는 개별적 증진에 많이 관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개별존재의 가슴보다는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통치한다.

43:9.5 (495.7) 그리고 너희가 구원자별 생애를 위해 에덴시아를 떠날 준비를 하는 그 날에, 너희는 파라다이스의 이 면을 훈련하는 너희의 전체 시기들을 가장 산뜻하게 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 중 하나를 잠시 멈추어서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체의 영광은 너희가 안쪽으로 상승하면서, 신성한 의미 그리고 영적인 가치들을 더욱 크게 이해하는 증가되는 수용력을 성취 할수록 증강할 것이다.

43:9.6 (496.1) [말라바티아 멜기세덱에 의해 후원되었음]

제 44 편 천상의 거장

44:0.1 (497.1) 다양한 부분적 세계 그리고 우주 본부 세계의 우대거류민단 가운데에는, 천상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혼성 개인성들의 독특한 계층이 발견될 수 있다. 이 존재들은 모론시아 그리고 하위 영 영역들의 주(主) 예술가들이며 거장들이다. 그들은 모론시아 장식에 그리고 영적 미화에 참여하는 영들 그리고 반(半)영들이다. 그러한 거장들은 대우주에 두루—초우주들의 본부 세계들, 지역우주들, 별자리들, 그리고 체계들, 뿐만 아니라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한 모든

구체들에—퍼져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주요 활동 영역은 별자리들 안에 있으며 특별히 각각의 본부 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770개 세계들에 있다.

44:0.2 (497.2) 그들의 활동이 물질적인 마음에게는 거의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모론시아 그리고 영 세계들이 그들의 높은 기술과 숭고한 문화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은 납득되어야만 한다.

44:0.3 (497.3) 천상의 거장은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며; 중앙우주에 고유하게 있는 특정의 선생 개인성들로 구성된 존재들의 선택되고 모집된 무리단이고, 자발적인 그들의 학생들은 상승하는 필사자들과 수많은 다른 천상의 집단들로부터 뽑혔다. 이 기술자들에 대한 기원적 교육 무리단은 일곱 주(主) 영들의 협동을 받아 무한한 영에 의해 언젠가 배정되었으며 7,000명의 하보나 강사들, 거장들의 일곱 분야들 각각에 1,000명씩으로 구성되었다. 처음에 그러한 중심으로 시작하여, 영과 모론시아 관련사에 있어서 숨겨 있는 일꾼들의 이 찬란한 기구가 시대들에 걸쳐 발전되어 왔다.

44:0.4 (497.4) 모든 모론시아 개인성과 영 실존개체는 천상의 거장 무리단에 들어가기에 적합하다; 그것은 천성적인 신성한 아들관계의 계급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이다. 진화하는 구체들로부터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들은, 그들이 모론시아 세계들에 도착한 후에, 거장 무리단에 들어가기 위해 지원하며, 만일 충분하게 재능을 갖고 있으면 비교적 긴 또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그러한 생애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1,000년, 초우주 시간으로 1,000년 미만으로 천상의 거장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44:0.5 (497.5) 천상의 거장 전체는 초우주 본부에 등록되어 있지만 지역우주 수도들에서 모론시아 감독자들에 의해 지도를 받는다. 그들은 각 지역우주의 본부 세계에서 기능하고 있는 모론시아 감독자들의 중앙 부대에 의해 다음과 같은 일곱 주요 활동 분야에 임명 된다:

44:0.6 (497.6) 1. 천상의 음악가

44:0.7 (497.7) 2. 천상의 재생자

44:0.8 (497.8) 3. 신성한 건축자

44:0.9 (497.9) 4. 생각기록자

44:0.10 (498.1) 5. 에너지조종자

44:0.11 (498.2) 6. 설계자와 장식자

44:0.12 (498.3) 7. 조화(調和)작업자

44:0.13 (498.4) 이 일곱 집단의 기원적 선생들은 모두 하보나의 완전 세계들로부터 쏟아져 나왔으며, 하보나는 영 예술성의 모든 위상들과 형태들을 위한 원형틀, 원형틀 학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보나의 이들 예술들을 우주의 세계들에게 옮겨지게 하는 것이 거대한 임무이기는 하지만, 천상의 거장은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기법과 실행에서 개선을 이루어오고 있다. 상승 생애의 다른 모든 위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력의 모든 계통에서 최고로 진보된 자들은 그들의 우월한 지식과 기술을 그들보다 재능이 적은 동료들에게 계속적으로 나누어주도록 요구되고 있다.

44:0.14 (498.5) 너희는 맨션세계들에서 하보나의 이들 옮겨 심어진 예술들을 처음으로 잠깐 보게 될 것이며, 그리고 너희의 깊은 감상은 너희가 구원자별의 영 회랑 안에 서서

영 영역들의 장엄한 예술가들의 영감이 넘치는 거작들을
바라보기까지, 높아지고 밝아질 것이다.

44:0.15 (498.6) 모론시아 그리고 영 세계들의 이 모든 활동들은
실체이다. 영 존재들에게 있어서 영 세계는 실체이다.
우리들에게는 물질세계는 더욱 비(非)실체이다. 높은
형태의 영들은 일상의 물질을 두루 자유롭게 지나간다.
높은 영들은 특정한 기본적인 에너지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물질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물질적인 존재들에게
있어서 영 세계는 다소 비(非)실체이다; 영 존재들에게
있어서 물질세계는 거의 전적으로 비(非)실체이며, 단지
영 실체들의 본체가 지닌 그림자에 불과하다.

44:0.16 (498.7) 나는, 나에게만 있는 시력을 가지고서는, 이
이야기가 번역되고 기록되고 있는 건물을 감지할 수 없다.
우연히 내 옆에 서게 된 유버사로부터 온 신성한 조연자는
이들 순전히 물질적인 창조물을 훨씬 적게 감지한다.
우리는 이 물질적 구조물들이 어떻게 너희에게
나타나는지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에너지 변환자들 중
하나에 의해 우리 마음속에 제시된 하나의 영 부분을
봄으로써 분별한다. 물질적인 이 건축물은, 그것이

물질적인 필사자들에게는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의 영 존재인 나에게 있어서는 것처럼 정확한 실체는 아니다.

44:0.17 (498.8) 영 세계와 물질세계 둘 모두의 창조계들의 실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특정한 유형의 존재들이 있다. 이 등급에 속하는 것은 하보나 봉사원의 네 번째 창조체들 그리고 화해자들의 네 번째 창조체들로 불리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천사들은 영과 물질적 존재들 둘 모두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자질로서 부여받았으며 또한 육신에서의 삶으로부터 해방된 뒤에 상승하는 필사자들도 그러하다. 높은 영 차원들을 달성한 후에는, 상승자들은 물질적 실체와 모론시아 실체 그리고 영 실체를 인지할 수 있다.

44:0.18 (498.9) 한 때 필사 존재였고 조절자-융합 상승자인, 유버사로부터 온 막강한 메신저가 또한 여기에 나와 함께 있으며, 그는 너희를 현재 있는 그대로 감지하며 동시에 현재 제시되어 있는 단독 메신저와 초(超)천사 그리고 다른 천상의 존재들을 눈으로 본다. 너희의 긴 상승 과정에 있어서 너희는 그 전에 실존하였을 때의 너희 동료들을

알아볼 수 있는 힘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삶의 사다리에서 안쪽을 향하여 너희가 상승할 때 너희는 그 이전의 그리고 보다 낮은 차원의 체험에서 만났던 연관-동료 존재들을 알아보고 형제우애를 가지는 능력을 항상 유지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변환 또는 부활이 있을 때마다, 그 이전 세계들에서 만난 너희 친구들과 동료들을 알아보는 능력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너희가 볼 수 있는 범위에 또 다른 영 존재들의 집단을 더하게 될 것이다.

44:0.19 (498.10) 이 모든 것은 내주 하는 생각 조절자들의 활동에 의해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체험 속에서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너희 삶의 전체 체험의 사본을 그들이 간직하고 있음에 따라서, 너희는 너희가 한번 가졌던 그 어떤 참된 속성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장되어있다; 이들 조절자들은 너희의 한 부분으로서, 실체로서, 너희로서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44:0.20 (499.1) 그러나 나는 천상의 거장들의 작업의 본성을 물질적인 마음에게 전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에서 거의 절망에 빠져있다. 나는 이들 모론시아 활동행위들과 영에-근접한 현상들의 실체를 필사자 마음에게 펼쳐보이려고

노력함에 있어서, 악용하는 생각과 왜곡하는 언어에 대한
필연성에 계속적으로 지배 받고있다. 너희의 이해력은
파악 능력이 없으며, 그리고 이들 반(半)영적 활동들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관계를 전하기에는 너희 언어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과제에서 나의
존재로서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철저하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하면서, 이들 실체에
대하여 인간 마음을 깨우치려는 이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44:0.21 (499.2) 나는 필사 물질적 활동들과 천상의 거장들의
다양한 기능 사이의 서투른 대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는
시도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에 유란시아 종족들이
예술을 비롯하여 다른 문화적 성취들에서 더욱 진보를
이룩하였다면, 나는 물질적 사물들로부터 모론시아의
사물들 쪽으로 인간 마음을 구체적으로 투사하려는
노력에서 더욱 멀리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모론시아
그리고 영 세계들에서의 이들 활동행위의 실체가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내가 성취하기 바랄 수
있는 거의 전부이다.

제 1 장. 천상의 음악가

44:1.1 (499.3) 필사자가 들을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모론시아 곡조들을 거의 알아들을 수 없다. 거기에는 인간의 청력으로는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의 물질적 범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론시아 그리고 영 조화의 상상할 수 없는 범위도 있다. 영 곡조들이 물질적 소리 파동은 아니지만 영 진동들은 천상의 개인성들의 영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광대한 범위와 표현하는 혼이 그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지력을 온통 초월하는, 우주들의 선율과 연관-되는 연주의 장엄함도 있다. 나는 구체의 선율이 천상의 순환회로들의 영 에너지에 따라 흘러가는 동안 최고의 황홀경에 빠져 있는 수많은 기쁨에 넘친 존재들을 보아 왔다. 기묘한 이 선율들은 한 우주의 구석구석까지 방송될 수 있다.

44:1.2 (499.4) 천상의 음악가들은 다음과 같은 영 세력들을 조종함으로써 천상의 화음을 만드는 일에 매달려 있다:

44:1.3 (499.5) 1. 영적 소리—영 흐름 방해들.

44:1.4 (499.6) 2. 영적 빛—모론시아와 영적 영역들의 빛을 통제하고 강화함.

44:1.5 (499.7) 3. 에너지 충돌—모론시아 그리고 영 에너지들을
기술적으로 다룸으로써 산출되는 곡조.

44:1.6 (499.8) 4. 색깔 교향곡—모론시아 색조(色調)의 선율;
이것은 천상의 음악가들의 가장 높은 업적에 속하는
것으로 손꼽힌다.

44:1.7 (499.9) 5. 연관-동료 영들의 화음—장엄한 곡조들을
연주하는 모론시아 그리고 영 존재들로 구성된 다른
계층들의 참된 배열과 관계적-연합.

44:1.8 (499.10) 6. 생각의 선율—하보나의 곡조들에서
터져나오는 것처럼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영적 사고들의
사색.

44:1.9 (499.11) 7. 공간의 음악—다른 구체들의 곡조를 알맞게
조율함으로써 우주 방송 순환회로들 위에 올릴 수 있음.

44:1.10 (500.1) 소리와 색과 에너지를 다루고 조종하는 기법에서
100,00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방식이 있는데, 인간이
악기를 활용하는 것과 유사한 기법이다. 너희의 춤 합주곡
양상블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존재 배치와 개인성 배열로
이루어지는 천상의 화음에 접근해 보려는 물질

창조체들의 조잡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시도를 대표한다. 모론시아 멜로디의 또 다른 5가지 형태들은 물질적 육체의 감각전달 기능구조로는 인지될 수 없다.

44:1.11 (500.2) 화음(和音), 음악적인 관계적-연합의 일곱 번째 차원의 음악은 영 통신의 한 우주적 신호이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납득하고 있는 음악은 예루셈의 학교들, 체계 본부에서 가장 높게 표현되는데, 그곳에서는 반(半) 물질적인 존재들이 음의 조화를 배운다. 필사자들은 모론시아 곡조와 천상의 화음으로 된 다른 형태들에게 반응하지 않는다.

44:1.12 (500.3) 유란시아에서 음악을 물리적 그리고 영적 모두로 깊이 이해하고 감상한다; 너희 인간 음악가들은 음악적 감각을 너희 옛 선조들의 미개한 단조로운 단음에서 소리에 대한 이해와 감상의 더욱 높은 차원으로 높아지기 까지 많은 것을 해냈다. 대부분의 유란시아 필사자들은 음악에 대해 물질적 근육으로 너무나 많이 반응하고 마음과 영으로는 너무나 적게 반응한다; 그러나 음악적 깊은 이해와 감상에서 35,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꾸준한 향상이 있어 왔다.

44:1.13 (500.4) 음조가 넘치는 절분음(節分音)은 원시인의 음악적 단조로운 단음으로부터 너희 이후-시대 음악가들의 표현넘치는 화음과 의미넘치는 멜로디로 옮겨지는 하나의 과도기를 대표한다. 이들 리듬에서의 초기 유형들은 화음 감상에서의 더욱 높은 지능적 힘을 발휘할 필요 없이도 음악을-사랑하는 깊은 감각의 반응을 자극하며, 그에 따라서 더욱 일반적으로 미성숙하거나 혹은 영적으로 나태한 개별존재에게 호소력이 있다.

44:1.14 (500.5) 유란시아에서의 최고의 음악은, 너희 음악가들의 천상의 연관-동료들에게 들렸던 장엄한 선율들이 획 지나가며 만들어낸 반향이며, 그들은 떠났어도 이들 모론시아 기세의 화음들은 소리 화음의 음악적 멜로디라는 기록으로 남아채어져 있다. 영-모론시아 음악은 표현과 재생에서의 일곱 가지 방식 모두를 드물지 않게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 마음이 상급 구체의 이들 멜로디를 단순한 음악적 소리의 악보로 축소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서도 엄청나게 장애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하나의 음악 악기를 수단으로 하여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재생하려고 수고하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44:1.15 (500.6) 너희가 유란시아에서 어떤 아름다운 멜로디들을 조합해 왔지만, 음악적으로 사타니아에 있는 대부분의 너희 이웃 행성에 가까울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아담과 이브가 살아만 있었다라도, 너희는 실제 안에서 음악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본성 안에 그렇게도 많았던 화음에 대한 자질은, 비음악적 성향들의 기질에 의해 너무나 희석되어 왔기에, 1천여 필사자들의 삶 속에서 오직 한 번 그 어떤 위대한 화성학을 깨달음이 있어 왔을 뿐이다. 그러나 낙심하지는 말라; 언젠가는 실제 음악가가 유란시아에 출현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가 만든 멜로디의 장엄한 선율에 매혹될 것이다. 그러한 한 인간 존재가 국가 전체, 심지어는 나아가 문명화된 세계 전체까지도 그 진로를 언제까지나 바꿀 수 있다. “멜로디는 전 세계를 변환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참말이다. 음악은 사람들과 천사들과 영들의 보편적인 언어로서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이다. 화음은 하보나의 언어이다.

제 2 장. 하늘의 재생자

44:2.1 (500.7) 필사자 사람은 천상의 재생자들의 기능에 대해 빈약하고 왜곡된 개념 이상의 어떤 것을 가질 희망이 거의

없는데, 나는 너희의 물질적인 언어의 조잡하고도 제한된 상징을 통해 그것들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 영-모론시아 세계는 최극적 가치를 갖는 수많은 것들, 유란시아에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번식할 가치가 있는 것들,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 거의 어려웠던 활동들의 범주에 속한 체험들, 육신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 하느님이 기다려 온 그 실체들을 갖고 있다.

44:2.2 (501.1) 천상의 재생자들은 일곱 개의 집단들로 되어 있으며, 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으로써 그들의 업무를 설명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44:2.3 (501.2) 1. 가수들—과거의 특별한 화음들을 반복하고 현재의 멜로디들을 해석하는 화성학자들. 그러나 이 모두는 모론시아 차원에서 영향을 받는다.

44:2.4 (501.3) 2. 색 작업자들—너희가 스케치하는 사람과 화가(畫家)라고 부를 수 있는 빛과 그림자의 예술가들, 장래의 모론시아 향락을 위해 지나가는 광경들과 과도기 에피소드들을 보존하는 예술가들.

44:2.5 (501.4) 3. 빛 영상자들—움직이는 그림들이 매우 천연적인 삽화가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반(半)영적-현상들의 실체를 만드는 자들.

44:2.6 (501.5) 4. 역사전기 연출자들—우주적 기록과 역사의 중대한 사건들을 극적으로 재현시키는 자들.

44:2.7 (501.6) 5. 예언 명인들—역사의 의미들을 미래 속으로 구체적으로 투사하는 자들.

44:2.8 (501.7) 6. 일생-이야기 구술자들—삶의 체험의 의미와 의의(意義)를 영속시키는 자들. 현재의 개인적 체험들을 미래의 달성 가치들 속으로 구체적으로 투사하는 것.

44:2.9 (501.8) 7. 행정 제정자—통치 철학과 행정-관리적 기법의 의의(意義)를 묘사하는 자들, 주권을 가진 천상의 극작가들.

44:2.10 (501.9) 천상의 재생자들은 마음 휴식 그리고 개인성 전환에서의 특정 형태들과 기억 재현을 연결함에 있어서 복귀 지도자들과 매우 종종 그리고 효과적으로 협동한다. 모론시아 비밀회의들과 영 집회들 앞에서, 이 재생자들은 그러한 모임들의 목적을 대변하는 거대한 희극 작품들

속에서 때때로 자신들을 연관시킨다. 나는 100만 명 이상의 배우들이 1,000개의 장면들을 재현하는 엄청난 공연을 최근에 관람한 적이 있다.

44:2.11 (501.10) 비교적 높은 지적 선생들과 과도기 사명활동자들은 그들의 모론시아 교육 활동 안에서 다양한 집단의 재생자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 전체가 과도기 예증(例證)에 활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들의 일들 중 많은 매우 많은 부분은 영구적인 본성을 가지며 모든 미래 시간에 대해 하나의 유산으로서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이다. 이 거장들은 너무나도 재주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한꺼번에 기능을 발휘할 때 그들은 한 시대를 다시 공연할 수 있으며, 세라핌천사 사명활동자들과 협동하여 그들은 시간의 필사자 선지자들에게 영 세계의 영원한 가치들을 실재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제 3 장. 신성한 건축자들

44:3.1 (501.11) "하느님이 그 건축자요 만드신 이"인 도시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너희 필사자들이 익숙해 있는 그리고 대단히 많은 모든 것을 영 복제 속에 갖고 있다. 우리는

집들과 영 위문품들 그리고 모론시아 필수품들을 갖고 있다. 인간들이 즐길 수 있는 모든 물질적 만족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부유하게 하고 크게 만드는 일을 하는 수천의 영적 실체들을 소유하고 있다. 신성한 건축자들은 일곱 개의 집단으로 기능 한다:

44:3.2 (502.1) 1. 주택 설계자들 그리고 건축자들— 개별존재들과 활동하는 집단들에게 배정된 거주지들을 건설하고 개조하는 자들. 이 모론시아 그리고 영 거주지들은 실제적이다. 그들은 너희의 근시안적인 눈에 비쳐지지 않겠지만, 그들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실제적이고 아름답다. 어느 정도까지는, 모든 영 존재들이 그들의 모론시아 또는 영 거주지들을 계획하고 창조하는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건축자들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 집들은 그것들 속에서 살게 될 모론시아 또는 영 창조체들의 필요에 따라 갖추어지고 꾸며진다. 이 모든 건축물들 속에는 개별적인 표현을 위한 풍성한 다양함과 광대한 기회가 존재한다.

44:3.3 (502.2) 2. 직업 건축자들—영 그리고 모론시아 영역들의 정해진 그리고 일상적인 일꾼들의 거주지들을 설계하고

조립하는 일을 하는 자들. 이 건축자들은 유란시아 작업장과 다른 산업 공장들을 건축하는 그들과 비교될 수 있다. 변환기 세계들은 노동에 있어서 상호적 사명활동과 특수 분야들의 필연적 조화가 필요하다. 무리 전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며; 모론시아 존재들 그리고 진화하는 영들 사이에는 상이한 기능이 있고, 이 직업 건축자들은 보다 나은 작업장들을 건설할 뿐만 아니라 일꾼들의 직무 증진에도 기여한다.

44:3.4 (502.3) 3. 놀이 건축자들. 수많은 구성물들이 휴식 기간 동안 활용되는데, 그것들은 필사자들이 오락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놀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모론시아 세계들, 상승하는 존재들이지만 진화적 행성들로부터 최근에 떠난 그들을 훈련하는 장소가 있는 변형 구체들의 해학가들인 복귀 지도자들을 위해 적절하게 장치되도록 감독되고 있다. 비교적 높은 영들조차도 그들의 영적 재충전 기간 동안 추억에 잠기는 유머의 특별한 형태 속에 참여한다.

44:3.5 (502.4) 4. 경배 건축자들—영 그리고 모론시아 성전들의 숙련된 고안건축가들. 필사자가 상승하는 모든 세계들은

경배하는 성전들을 갖고 있으며, 그들은 모론시아 영역
그리고 영 구체들의 가장 멋진 창작물들이다.

44:3.6 (502.5) 5. 교육 건축자들—모론시아 훈련과 고등 영
학습의 본부를 건축하는 자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일,
보편적인 문화적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작업에 관한 추가적 정보, 상승하는 인간들을
모론시아 그리고 영 세계들의 더욱 지능적이고 효력적인
시민들로 만들도록 고안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길이
항상 열려 있다.

44:3.7 (502.6) 6. 모론시아 계획자들—모든 영역들의 모든
개인성들이 한 때 어느 한 구체에서 나타날 때 그들의 조화-
협동 관계적-연합을 위해 건축하는 자들. 이 계획자들은
진보적인 모론시아 삶의 조화-협동을 강화하기 위해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과 조화-협동한다.

44:3.8 (502.7) 7. 공공 건축자들—경배하는 자들 이외의 집회가
열리는 장소들을 계획하고 건축하는 거장들. 거대하고
장엄한 일반 집회 장소들이다.

44:3.9 (502.8) 이 구조물들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장식물들 역시 물질적 인간들의 감각적 이해에 정확하게 실제적인 것으로 비쳐지지 않겠지만, 우리들에게는 매우 실제적이다. 너희가 그곳에 육신의 몸을 입고 간다면 이 성전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초물질적 창조계들은 실재적으로 거기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분명하게 식별하며 충분히 그것들을 즐기고 있다.

제 4 장. 생각 기록자

44:4.1 (503.1) 이 거장들은 영역들의 우월한 생각을 보존하고 번식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다음의 7가지 부류들로 기능 한다:

44:4.2 (503.2) 1. 생각 보존자들. 이들은 영역들의 좀 더 높은 사고를 보존하는 일에 전념되어 있다. 모론시아 세계들에서는 그들은 지적(知的) 활동의 보화들을 정말로 소중히 간직한다. 처음으로 유란시아에 오기 전에, 나는 이 행성에 있는 위대한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들의 관념 작용에 대한 기록을 보았고 방송을 들었다. 생각

보존자들이 그러한 고귀한 관념들을 유버사의 언어로 보존하였다.

44:4.3 (503.3) 각각의 초우주는 자체의 언어, 그곳의 개인성들이 말하고 그곳 지역들에 두루 통용되는 말을 갖고 있다. 우리 초우주에서는 이것이 유버사 말이라고 알려져 있다. 각각의 지역우주 역시 자체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네바논의 높은 계층들 모두는 두 가지 언어, 네바돈 언어와 유버사 언어, 둘 모두를 구사한다. 다른 지역 우주에서 온 두 개별존재가 만나면, 그들은 유버사 말로 교통 한다; 만약에, 그들 중 하나가 다른 초우주에 내려왔다면, 그들은 반드시 번역자에게 의지해야 한다. 중앙우주에서는 언어가 거의 필요 없다; 거기에는 완전하고 그리고 거의-완벽한 납득이 존재 한다; 거기에서는 오직 하느님들만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파라다이스에서의 잠깐의 만남이, 1,000년 동안의 필사자 언어로 교통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서로를 납득함을 드러낸다고 배웠다. 심지어는 구원자별에서조차 우리는 "우리는 알려진 그대로 안다."

44:4.4 (503.4) 모론시아 구체와 영 구체에서 생각을 언어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이해 한계를 벗어난다. 생각을 영구 기록으로 축소시키는 우리들의 속도는 500,000개가 넘는 단어들 또는 생각 상징들이 유란시아 시간으로 1분 만에 기록될 수 있는 숙련 기록자들에 의해 크게 빨라질 수 있다. 이 우주 언어들은 진화하는 세계들의 얘기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공급되어 있다. 기본적인 알파벳이 겨우 70개 문자들로 되어 있지만, 유버사의 개념 상징들은 10억 개 이상의 글자들을 포용한다. 네바돈의 언어는 기본적인 상징들 또는 알파벳의 숫자가 48개인 것보다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다.

44:4.5 (503.5) 2. 개념 기록자들. 기록자들 중 두 번째 집단은 개념 화상(畫像)들, 개념 원형틀들의 보존에 관계되어 있다. 이것은 물질적 영역들에서 알려져 있는 영원한 기록의 한 형태이며, 나는 너희가 평범한 기록언어로 100년 동안 읽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이 방법에 의해 너희 시간으로 한 시간 만에 얻을 수 있다.

44:4.6 (503.6) 3. 표의문자 기록자들. 우리는 너희가 사용하는 기록된 언어와 말로 하는 언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개 개념 영상화(映像化)와 표의문자 기법을 사용한다. 표의문자들을 보존하는 그들은 개념 기록자들의 작업보다 1,000배 더 향상시킬 수 있다.

44:4.7 (503.7) 4. 웅변 주최자들. 기록자들 중 이 집단은 웅변에 의해 번식되도록 사고를 보존하는 임무에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네바돈의 언어를 사용하면 한 유란시아 필사자가 평생토록 해야 될 문제를 우리는 반시간의 연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들 활동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너희의 유일한 희망은 잠시 멈추어서 너희의 혼란되고 왜곡된 꿈 속 세상에서의 기법—너희가 몇 초 동안에 한 밤의 환상 속에서 몇 년 동안의 체험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44:4.8 (503.8) 영 세계의 웅변은 오직 미숙하고 허점투성이인 유란시아의 연설을 듣는 너희에게 준비된 위로 잔치들 중의 하나이다. 설명을 뛰어 넘어서 영감을 주는 구원자별과 에덴시아의 연설 속에는 표현의 음악과 음조의 조화가 있다. 강렬한 이 개념들은 영광의 왕관 속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들과 같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 다른 세계의 이 실체들의 폭과 깊이를 인간 마음에 전달할 수 없다!

44:4.9 (504.1) 5. 방송 지도자들. 파라다이스와 초우주들 그리고 지역우주들의 방송들은 생각 보호자들로 이루어진 이 집단의 일반적인 감독 아래에 있다. 그들은 방송 재료의 조화-협동자로서 뿐만 아니라 검열관 그리고 편집자로서 봉사하는데, 파라다이스 방송 전체의 초우주 적응을 이룩하며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방송을 지역우주들의 개별적인 말로 적응하고 번역한다.

44:4.10 (504.2) 지역우주 방송은 체계들과 개별 행성들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변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우주 보고서들의 전달은 신중하게 관리되며, 주어진 순환회로 안에서 각 세계에 모든 보고서가 적절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항상 기록을 남겨 둔다. 이 방송 지도자들은 지능 통신의 모든 목적을 위해 우주 흐름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숙련되어 있다.

44:4.11 (504.3) 6. 리듬 기록자들. 유란시아인들은 그들의 일이 너희의 시적(詩的) 작품들과 매우 다르고 그것들을 거의 무한하게 초월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장들을

틀림없이 시인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리듬은 모론시아 존재와 영 존재 둘 모두에게 덜 피곤한 것이며, 그래서 리듬 형태로 수많은 기능들을 발휘함으로써 증강된 기쁨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주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에덴시아 집회들에 대한 시적인 방송들 중 어떤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자아-표현 그리고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이 멋진 형태의 대가인 천상의 천재들의 풍부한 색조와 곡조를 즐기는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44:4.12 (504.4) 7. 모론시아 기록자들. 나는 모론시아 관련사들 그리고 영 활동행위들에 대한 다양한 분류 작업의 전체 그림을 보존하는 작업에 배정된 생각 기록자들 중 이 중요한 집단의 기능을 물질적인 마음에게 어떻게 묘사할 것인지 모르겠으며; 투박하게 묘사하자면, 그들은 과도기 세계들의 집단 사진작가들이다. 그들은 진보하는 이 신(新)시대들의 생생한 장면들과 연상들을 미래를 위해 보존하는데, 모론시아 기록 보관소에 그것들을 보존한다.

제 5 장. 에너지 조종자

44:5.1 (504.5) 흥미롭고 효력적인 이 거장들은 모든 종류의 에너지 즉: 물리적, 마음적, 그리고 영적 에너지와 관련된다.

44:5.2 (504.6) 1. 물리에너지 조종자들. 물리-에너지 조종자들은 힘 지도자들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봉사해 왔으며 물리적 에너지의 많은 위상들에 대한 조종과 통제에 있어서 숙련자들이다. 그들은 초우주들의 기본적인 세 가지 흐름들과 30개 보조 에너지 분리들에 정통해 있다. 이 존재들은 과도기 세계들의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조력자들이다. 그들은 파라다이스의 조화우주 구체적인 투사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자들이다.

44:5.3 (504.7) 2. 마음-에너지 조종자들. 이들은 모론시아 존재들과 다른 유형의 지능 존재들 사이에서 상호 의사소통이 있어서 숙련자들이다. 필사자들 사이의 통신의 이 형태는 유란시아에서는 실천적으로 실존하지 않는다. 이들은 서로 교통하기 위해 상승하는 모론시아 존재들의 능력을 제고하는 전문가들이며, 그들의 활동은 물질적인 마음에게 묘사할 수 있는 나의 힘을 너무나

벗어나는 지성적 연락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독특한 모험들을 포용한다. 이 거장들은 무한한 영의 마음 순환회로들을 예리하게 연구하는 자들이다.

44:5.4 (505.1) 3. 영-에너지 조종자들. 영-에너지 조종자들은 흥미로운 집단이다.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확립된 법칙에 따라 활동한다. 연구해 보면 영 능력은 신뢰할만한 결론을 가져오며 물리적 에너지들과 마찬가지로 정밀하게 취급될 수 있다. 영 세계에는 물리적 영역들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확실하고도 믿을만한 법칙들이 존재한다. 최근의 수백만 년 동안 영적 에너지 수용을 위한 많은 개선된 기법들이, 우주들에 두루 천상의 존재들의 모른시아 그리고 다른 조직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영 에너지를 통치하는 영원한 아들의 근본적 법칙들에 대한 이 연구자들에 의해 효력을 발생해 왔다.

44:5.5 (505.2) 4. 복합 조종자들. 이것은 물리적, 마음적, 그리고 영적 에너지들로서 우주들에 두루 현시 된 신성한 에너지의 세 개의 기원적인 위상들의 기능적 관계적-연합에 전념하는 잘 훈련된 존재들로 이루어진 모험적

집단이다. 이들은 최극자 하느님의 우주 현존을 발견하려고 실체 안에서 찾고 있는 비슷한 개인성들인데, 왜냐하면 이 신(神) 개인성 안에서는 모든 대우주 신성의 체험적 통일이 발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 거장들은 최근에 어느 정도 성공에 도달하였다.

44:5.6 (505.3) 5. 운송 충고자들. 운송 세라핌천사들에 대한 이 기술 충고자들의 무리단은 여정을 정하는 일 아니면 우주의 세계들에 있는 운송 우두머리를 돕는 일에 별 연구자들과 함께 일함에 있어서 가장 능숙하다. 그들은 구체들의 통행 감독자들이며 거주민이 사는 모든 행성들에 제시되어 있다. 유란시아에서는 70명의 운송 충고자들의 무리단이 봉사하고 있다.

44:5.7 (505.4) 6. 통신 전문가들. 마찬가지로, 유란시아에는 행성간 그리고 우주 간 통신을 하는 12명의 거장들이 봉사하고 있다. 오랜 체험을 가진 이 존재들은 영역들의 통신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발송 그리고 간섭 법칙들에 대한 지식의 전문가들이다. 이 무리단은 중력 그리고 독자적 메신저들로 구성된 그것들을 제외하고 우주

메시지들의 모든 형태들에 관여한다. 유란시아에서는 그들의 작업의 대부분이 천사장들의 순환회로를 넘어서 성취되지 않으면 안 된다.

44:5.8 (505.5) 7. 휴식의 교사. 신성한 휴식은 영적-에너지 섭취하기 기법과 연관된다. 모론시아 그리고 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처럼 분명하게 다시 채워야만 하지만, 똑같은 이유로 그런 것은 아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너희를 깨우치려는 나의 시도에서 거친 예시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어찌되었건, 영 세계의 우리는 주기적으로 우리들의 규칙적인 활동을 멈추고 그리고 집결하기에 적합한 장소들로 가야 하며, 거기에서 우리는 신성한 휴식에 들어가서는 우리의 고갈된 에너지를 회복해야만 한다.

44:5.9 (505.6) 너희가 모론시아 존재들이 되기 시작해 왔고 그리고 영 관련사의 기법을 체험하기 시작해 온 다음에, 맨션세계들에 도달하면, 너희는 이들 문제에서 첫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는 하보나의 가장 안쪽에 있는 순환계에 대해 그리고 우주의 순례자들이 그 전의 순환계들을 지나간 후에 파라다이스의 길고도 다시

활기차게 만드는 휴식 속으로 인도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것은 시간의 생애로부터 영원의 봉사로 옮기는 기술적 요구사항일 뿐만 아니라, 상승하는 체험의 마지막 과정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에너지 손실을 채우기 위해 요구되는 그리고 끝없는 생애의 다음 단계를 위한 영 힘의 비축 분을 저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하나의 필수품, 휴식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44:5.10 (506.1) 이들 에너지 조종자들은 열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수많은 다른 방법으로도 기능하는데, 에너지 섭취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에 관한 세라핌천사, 케루빔 그리고 사노빔들과 조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동적인 케루빔과 수동적인 사노빔 사이에서 발산하는 기세들에서의 가장 도움이 되는 균형의 유지에 기능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모론시아와 그리고 영 창조체들에게, 공간의 기본 에너지들의 효력적인 활용에 너무도 필수적인 신성한 휴식을 납득하려는 그들의 노력에서 다른 많은 방법으로 협조를 내어준다.

제 6 장. 설계자들과 장식가

44:6.1 (506.2) 독특한 이 거장들의 절묘한 작업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지! 영장식의 작업을 설명하려는 나의 역할에 있어서의 모든 시도는 마음과 물질의 너희 세계에서 이것들을 하려는 너희 자신의 딱한 그러나 가치 있는 수고를 물질적인 마음들에게 상기시켜줄 뿐일 것이다.

44:6.2 (506.3) 이 무리단은 1,000개가 넘는 활동 부서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일곱 개의 주요 항목들로 나뉘어 있다:

44:6.3 (506.4) 1. 색 기교자들. 이들은 영 반영의 10,000가지 색조들로 하여금 조화로운 아름다움이 있는 그들의 절묘한 메시지들을 울려 퍼지게 하는 자들이다. 색조 인식 이외에, 이 활동들이 감지되게 할 만한 것이 인간 체험 속에는 아무 것도 없다.

44:6.4 (506.5) 2. 소리 설계자들. 다양한 정체성과 모론시아 인식의 영 파동들은 너희가 소리라고 부르는 그것이 이 설계자들에 의해 묘사된다. 이 총동들은 실체 안에서, 천상의 무리들의 적나라하고 영화로운 영-혼들의 뛰어난 반영들이다.

44:6.5 (506.6) 3. 감정 설계자들. 느낌을 강화하고 보존하는 이 존재들은 시간의 자녀들의 연구와 교화를 위해 그리고 모론시아 진보자들 그리고 발전하는 영들의 영감과 미화를 위해 모론시아의 정서와 신성의 감정들을 보존하는 자들이다.

44:6.6 (506.7) 4. 냄새의 명인들. 화학적인 냄새들에 대한 물리적 감지에 천상의 영 활동들을 비교하는 것은 정말로 부적당하지만 유란시아 필사자들은 어떤 다른 이름에 의해서도 이 사명활동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거장들은 빛의 진보하는 자녀들의 교화와 기쁨을 위해 다양한 교향곡들을 창조한다. 너희는 이 유형의 영적인 장엄함에 조금이라도 비교될만한 것을 지구상에서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44:6.7 (506.8) 5. 현존 장식가들. 이 거장들은 자아-장식의 예술 또는 창조체 미화의 기법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들 다양한 존재의 혼성 합주곡 속에서 다른 모론시아 그리고 영 조직들에게 배정된 위치상의 가치들을 통하여 관계의 의의(意義)를 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개개의 모론시아 그리고 영 창조체들 안에 광대하고도 기쁨에 넘친

반응들을 산출하는 일에 헌신되어 있다. 이 예술가들은 너희가 살아있는 음악 선율, 냄새, 광경에 대해 하는 것처럼 초물질적 존재들을 배열한 다음 그것들을 섞어서 영광스러운 성가가 되게 한다.

44:6.8 (506.9) 6. 맛 설계자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거장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나는 그들이 모론시아 맛을 개선하는 자들이고 또한 진화하는 영 감각들을 예리하게 함으로써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라고 어렵פות하게 제시할 수 있겠다.

44:6.9 (507.1) 7. 모론시아 합성가들. 이들은 다른 모든 존재들이 그들 각각에 따른 공헌을 할 때 모론시아 합주곡에 절정에 이르는 그리고 완결하는 접촉을 하고 그래서 신성하게 아름다운 것에 대한 영감 있는 묘사, 영 존재들 그리고 그들의 모론시아 연관-동료들을 향한 영구적인 영감을 성취하게 하는 주(主) 거장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모론시아 그리고 영 세계들의 예술적 영광과 심미적 아름다움을 깨닫기 시작하려면 너희가 먼저 동물적인 육체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제 7 장. 조화 작업자

44:7.1 (507.2) 이 예술가들은 너희가 추측하는 것과 같은 음악 미술 또는 다른 비슷한 것과 관련되지 않는다. 그들은 영 세계에 제시되어 있지만 필사자들에 의해서 감지될 수 없는 특별한 기세와 에너지들의 조종하는 것과 조직하는 것에 몰두되어 있다. 만일 내가 비교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가능한 근거를 가졌더라면 영 성취의 이 독특한 분야를 설명하려고 시도하였겠지만, 그러나 나는 절망에 빠진다.—이 구체에서의 천상의 예술을 필사자 마음에게 전할 그 어떤 희망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될 수 없는 그것을 여전히 암시해 볼까 한다:

44:7.2 (507.3) 아름다움, 리듬, 그리고 조화는 지적으로 연관된 것이고 영적으로 동족이다. 진리, 사실, 그리고 관계는 지적으로 분리될 수 없고 그리고 아름다움의 철학적 개념과 연관된다. 선함, 정의로움, 그리고 공의는 철학적으로 상호관련 되어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진리와 신성한 아름다움과 영적으로 묶여 있다.

44:7.3 (507.4) 참된 철학의 조화우주 개념들이나, 천상의 예술의 묘사나, 또는 신성한 아름다움에서의 인간의 인지를 서술하려는 필사자 시도는, 만일 그렇게 시도되는 창조체

진보가 통합되지 않는다면, 결코 참되게 만족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진화하는 창조체 안에서의 신성한 충동의 이들 표현은 지적으로 참되고 감정적으로 아름답고 영적으로 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진리의 실체들과, 아름다움의 의미들, 그리고 선함의 가치들이 거장, 과학자, 또는 철학자의 일생 체험 안에 통합되어있는 것이 아니라면, 표현에서의 실제적 혼이 결여된 것이다.

44:7.4 (507.5) 이 신성한 본질특성들은 하느님 안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통합된다. 그리고 하느님을 아는 각각의 사람 또는 천사는 하느님과-같음을-이룸이 되는—영원한 진리, 우주적 아름다움, 그리고 신성한 선(善)의 진화적 체험 안에서의 체험적인 혼합을 이루는—끝이 없는 성취의 기법에 의해 통합된 자아-실현의 영원한-진보 차원들에서의 무제한적 자아-표현의 잠재를 갖는다.

제 8 장. 필사자 열망과 모론시아 성취

44:8.1 (507.6) 천상의 거장이 유란시아와 같은 물질적 행성들에서 직접적으로 일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필사 종족들 중 본성적으로 재능을 받은 개별존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체계의 본부들로부터 때때로 온다. 그렇게 배정되면, 이 거장들은 진보를 담당하는 행성 천사들의 감독 아래에서 일시적으로 활동한다. 세라핌천사 무리는 천성적인 자질을 가진 그리고 또한 특별하고도 이전(以前)의 체험을 가진 조절자를 소유한 이 필사자 예술가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 거장들과 협동한다.

44:8.2 (507.7) 특별한 인간 능력에는 세 가지 가능한 근원들이 있다: 제일 밑에는 항상 자연본성적 또는 선천적인 소질이 존재한다. 특별한 능력은 하느님들의 독단적인 선물인 경우가 전혀 없으며; 모든 빼어난 재능은 항상 선조들에게 근거한다. 이 자연적 재능에 덧붙여서, 또는 거기에 보충되어서, 내주하는 조절자가 다른 세계에서 또는 다른 필사 창조체 안에서 그러한 계통을 따라 실재적인 그리고 진정한 체험들을 이미 가졌을지도 모를, 저들 개별존재 안에서의 생각 조절자들의 인도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다. 인간 마음과 내주 하는 조절자 둘 모두가 특별한 재능을 가진 그러한 경우에, 영 거장들은 이 재능들을 조화시키는 자로서 활동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이 필사자들로 하여금 영역의 교화를 위해 그들의 증진된

설명을 시도하고 항상-완전하게 하는 이상들을 추구하도록 도와주고 영감을 주기 위해 파견될 수 있다.

44:8.3 (508.1) 영 거장들의 사회에는 특권계급 제도가 없다. 너희의 기원이 아무리 저급하다 하더라도, 만일 너희가 표현 능력과 선물을 소유하였다면, 너희는 적절한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위를 향해 상승할 때 모론시아 체험과 영적 달성의 크기에 따라 정당한 진가를 인정받을 것이다. 모론시아 생애가 충분히 보상하고 전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의 유전에서의 장애나 또는 필사자 환경의 박탈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예술적 성취와 풍부한 표현의 자아-실현의 그러한 만족감 전체는 진보적 성취 속에서의 너희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 성취될 것이다. 진화적인 평범한 사람의 포부가 마침내 실현될 것이다! 하느님들이 시간의 자녀들에게 재능과 능력을 독단적으로 증여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모든 그들의 고귀한 동경이 만족되는 달성을 위해, 그리고 지고한 자아-표현을 하려는 모든 인간의 갈망이 충족되는 것을 위해 꼭 제공한다.

44:8.4 (508.2) 그러나 모든 인간 존재는 기억해야만 한다: 육신 안에서의 필사자들을 애타게 만드는, 남보다 뛰어나려는 많은 야망들은 모론시아와 영 생애에서는 이들 똑같은 필사자와 끈질기게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상승하는 모론시아인들은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순전히 이기적인 갈망들과 자기본위적인 야망들을 사회화하는 것을 배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진지하게 하기를 바랐고, 그러나 환경이 너희를 그토록 끈질기게 거부하였던 것들은, 만일 모론시아 생애에서 참된 모타 통찰력을 습득한 이후에도 너희가 여전히 하고자 갈망한다면, 너희는 너희가 오랫동안-품어왔던 욕망들을 충만하게 만족시킬 그 각각의 기회를 가장 분명하게 부여받게 될 것이다.

44:8.5 (508.3)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그들의 영 생애들을 시작하기 위하여 지역우주를 떠나게 되기 전에, 그들은 그들의 필사자 실존이나 모론시아 실존의 수준을 언제나 내내 특징지었던 모든 지적, 예술적, 그리고 사회적 갈망이나 혹은 참된 야망에 관하여 충분히 만족해질 것이다. 이것은 자아-표현과 자아-실현의 만족에서 동등성을 성취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숨씨, 기법 그리고

표현에서의 동일한 체험적 지위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특징적인 개별성을 완벽하게 말소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체험적 달성에서의 새로운 영 차이점은 너희가 하보나 생애의 최종 순환계를 완결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평준을 이루고 그리고 동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파라다이스 거주자들은 개인적 체험에서의 아(亞)절대적 차이를 조절하는 필요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차이는 창조체 지위의 궁극을 집단적으로 달성하는 것—필사자 최종자의 일곱째-단계-영 운명—에 의해서만 평준이 이루어질 수 있다.

44:8.6 (508.4) 그리고 이것은 천상의 거장, 파라다이스 창조자들의 신성한 아름다움에 대한 예술적 묘사로 고안건축 구체들을 그토록 영화롭게 하는 절묘한 일꾼들의 세계주의적 조직체에 대한 이야기이다.

44:8.7 (508.5) [네바돈의 한 천사장에 의해 씌어짐]

제 45 편 지역체계 관리-행정

45:0.1 (509.1) 사타니아의 행정-관리적 중심은 고안건축 구체들의 군락, 숫자로서 57개—예루셈 자체, 7개의 주요위성과 종속위성 49개—로 이루어져 있다. 체계

수도인 예루셈은 유란시아보다 비록 중력은 다소 적지만, 그 크기는 거의 100배에 달한다. 예루셈의 주요 위성들은 일곱 과도기 세계이며, 그 각각은 유란시아보다 거의 10배 크고, 한편 이 과도기 구체들의 일곱 종속위성들은 유란시아와 크기가 비슷하다.

45:0.2 (509.2) 일곱 맨션세계들은 1번 과도기 세계의 일곱 종속위성들이다.

45:0.3 (509.3) 57개 고안건축 세계들의 전체 체계는 특별하게 창조된 이들 구체들의 물리적 조직과 배열의 성립된 기법에 따라 사타니아 힘 중심과 주(主)물리통제자들의 조화-협동에 의해 개별적으로 빛이 비추고 가열되며 물이 공급되고 에너지가 주입된다. 그것들은 물리적으로 보살핌을 받으며 그렇지 않으면 원주민 스포르나기아에 의해 관리된다.

제 1 장. 과도기 문화 세계

45:1.1 (509.4) 예루셈을 돌고 있는 일곱 주요세계들은 일반적으로 과도기 문화 구체라고 알려져 있다. 그것들의 통치자들은 때때로 예루셈 최극 집행 협의회에 의해

지정된다. 이들 구체들은 다음과 같이 번호가 매겨지고 이름이 붙는다:

45:1.2 (509.5) 1번. 최종자 세계. 이것은 지역체계의 최종자 무리단의 본부이며 그 둘레에는 접수 세계, 필사자 상승 계획에 충만하게 바쳐진 일곱 맨션세계가 둘러싸고 있다. 최종자 세계는 모든 일곱 맨션세계의 거주자가 방문할 수 있다. 운송 세라핌천사들이 이 순례여행에서 상승하는 개인성들을 왕복 운송하는데, 그들은 과도기 필사자들의 궁극적 운명 안에서 그들의 신앙을 기르도록 작정되어 있다. 최종자와 그들의 구조가 모론시아 시력에 근원적으로 감지될 수 없기는 하지만, 너희가 놀랄만한 과업을 완성할 수 있고 완성하게 되리라는 확신의 보증으로서, 너희가 이 긴 여행을 시작한 바로 그 세계로 돌아간 적이 있고 그리고 파라다이스 상승을 실재적으로 완성한, 이들 높은 영 개인성을 너희가 잠시 바라볼 수 있도록 에너지 변환자들과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이 때때로 만들어 줄 때 너희는 너무나 가슴 설렐 것이다. 맨션세계에 머무는 자들은 모두 최종자가 눈에 보이도록 하는 이런 집회를 위해 일 년에 적어도 한번 최종자 구체로 간다.

45:1.3 (510.1) 2번. 모론시아 세계. 이 행성은 모론시아 삶에 대한 감독자들의 본부이며, 그들의 연관-동료와 조력자, 모론시아 존재와 그리고 상승하는 필사자 둘 모두를 모론시아 우두머리들이 훈련하는 일곱 구체들로 둘러싸여 있다.

45:1.4 (510.2) 일곱 맨션세계들을 통과해 지나갈 때, 너희는 또한 모론시아 접촉을 점점 더하게 되는 이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구체들을 통과해 진보할 것이다. 너희가 첫 번째 맨션세계에서 두 번째로 진보할 때, 너희는 과도기 본부 2번, 모론시아 세계까지 방문자의 허락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그리고 이 여섯 문화구체들 중의 어느 하나에 제시되어 그곳에 있을 때, 너희는 연관된 집단 활동을 하는 둘러싼 일곱 세계들 중 어느 곳에서도, 초청을 받아, 방문자 또는 관찰자가 되기도 한다.

45:1.5 (510.3) 3번. 천사 세계. 이것은 체계 활동에 참여하는 세라핌천사 무리 전체의 본부이며 천사 훈련 그리고 교육을 하는 일곱 세계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것들은 세라핌천사의 사회구체들이다.

45:1.6 (510.4) 4번. 특급천사 세계. 이 구체는 찬란한 저녁별들과, 조화-협동하고 그리고 유사-조화-협동하는 존재들의 거대한 군집의 사타니아 고향이다. 이 세계의 일곱 위성들은 이름이 없는 세 천상의 존재들의 일곱 주요 집단에 배정되어 있다.

45:1.7 (510.5) 5번. 아들들의 세계. 이 행성은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을 포함하는 모든 계층들의 신성한 아들들의 본부이다. 둘러싸고 있는 일곱 세계들은 이들 신성하게 관계된 아들들의 어떤 개별적 집단화에 바쳐져 있다.

45:1.8 (510.6) 6번. 영의 세계. 이 구체는 무한한 영의 높은 개인성들의 체계 집합장소로 봉사한다. 둘러싸고 있는 그것의 일곱 위성들은 다양한 이 계층들의 개별 집단에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과도기 세계 6번에는 영의 대표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체계 수도들에서 관측될 그러한 현존도 없다; 구원자별의 신성한 사명활동자는 네바돈 안에 어디든지 있다.

45:1.9 (510.7) 7번. 아버지의 세계. 이것은 체계의 고요한 구체다. 어떤 집단의 존재도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다. 빛나는 위대한 성전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지만, 누구도 그 안에서

식별되지 않는다. 모든 체계 세계들의 모든 존재들은 경배자로서 환영을 받는다.

45:1.10 (510.8) 아버지의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일곱 위성들은 다른 체계들 안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사타니아에서는 그것들이 지금 루시퍼 반역으로 구금된 집단들을 위한 억류 구체로 사용되고 있다. 별자리 수도인 에덴시아는 유사한 감옥 세계를 갖고 있지 않는다; 사타니아 반역에서 그 반역에 가담하였던 소수의 세라핌천사들과 케루빔들이 예루셈의 이 고립된 세계에 오래 전부터 구금되어 있다.

45:1.11 (510.9) 일곱 맨션세계에 머무는 자로서, 너희는 우주 아버지의 구체인 일곱 번째 과도기 세계에 갈 수 있으며, 미가엘에 대항하는 반역에 루시퍼를 따랐던 그 개인성들 대부분과 그를 현재 감금하고 있는 이 행성을 돌고 있는 사타니아 감옥 행성도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슬픈 장면은 최근의 이 시대들 동안 관람될 수 있었으며, 그들의 우주의 아버지인 미가엘에 의해 제공된 구원을 거부하였던 루시퍼와 그의 몰락한 연관-동료들의 죄를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판결할 때까지 네바돈 전체에게 하나의 엄중한 경고로서 계속 봉사할 것이다.

제 2 장. 체계 주권자

45:2.1 (511.1) 거주되는 세계들의 지역체계의 우두머리 집행자는 1차 라노난덱 아들인 체계 주권자이다. 우리 지역우주 안에서는 이 주권자들이 큰 집행적 책임들, 비범한 개인적 특권들을 갖고 있다. 심지어는 오르본톤에서도, 체계 관련사들의 방향에 있어서 그러한 유별나게 광범위한 개인적인 사려 깊은 분별력을 행사하도록 체계 주권자들에게 승인할 만큼 그렇게 모든 우주들이 조직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네바돈의 전체 역사 속에서, 속박 받지 않은 이 집행자들은 오직 세 번 불충성을 범하였다. 사타니아 체계에서의 루시퍼 반란은 가장 마지막 것이었고 전체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었다.

45:2.2 (511.2) 사타니아에서는, 불운한 이 격변 이후에도, 체계 관리-행정의 기법에 있어서 변화가 전혀 없었다. 현재의 체계 주권자는 루시퍼의 후계자인 라나포지에게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아직 충분히 회복시켜주지 않은, 지금 별자리 아버지들의 감독 하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제외하고 그의 비열한 전임자에게 부여하였던 모든 힘을 소유하고 있고 모든 권한을 발휘하고 있다.

사타니아의 현재의 우두머리는 한 명의 품위 있고 명철한 통치자이며, 그는 반역의 가능성을 시험받은 주권자이다. 보조 체계 주권자로서 봉사할 때 라나포지는 네바돈 우주에서의 초기 격변에 있어서 미가엘에게 충성을 바쳤다. 이 막강하고 찬란한 사타니아 주님은 믿을만하고 시험을 받은 행정-관리자이다. 네바돈에서 두 번째 체계 반역이 있었을 때, 체계 주권자가 실족하여 어두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죄를 범하는 우두머리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라나포지는 정부에 대한 고삐를 거머쥐고, 체제의 관련사들을 원활하게 지휘함으로서, 그리하여 불운한 체계의 본부 세계들 또는 거주민이 사는 행성들에서 비교적 적은 개인성들이 손실게 되었다. 라나포지는 네바돈 전체에서 유일한 1차 라노난덱 아들이 되는 시원성을 갖고 있는데 그는 미가엘에 대한 봉사 안에서 그리고 상급 권한과 선행 계급의 그의 형제의 불이행의 현존 안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활동하였다. 라나포지는 그 이전의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들이 극복되고 반역의 산물들이 사타니아로부터 제거될 때까지 예루셈에서 떠나게 되지 않을 것이다.

45:2.4 (511.4) 사타니아의 고립된 세계들의 모든 관련사들이 그의 관할권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반면, 라나포지는 그들의 복지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는 유란시아에 종종 방문하고 있다. 다른 정상적인 체계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권자는 세계 통치자들, 행성영주들과 고립된 세계들의 거주 장관들의 체계 협의회를 주재한다. 이 행성 협의회는 때때로—“하느님의 아들이 함께 올 때” 체계의 본부에서 모인다.

45:2.5 (511.5) 일주일에 한 번, 예루셈에서 매 10일마다, 주권자는 본부 세계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의 개인성들로 구성된 어떤 한 집단과 비밀회의를 갖는다. 이것은 예루셈의 매우 흥미롭게 비공식적인 시간들이며, 그것들은 결코 잊혀 지지 않을 행사들이다. 예루셈에는 다양한 계층의 존재들 사이에 그리고 각각의 이들 집단과 체계 주권자 사이에 최상의 형제우애관계가 존재한다.

45:2.6 (511.6) 독특한 이 집회들은 체계 수도의 거대한 집회 장소인 유리 바다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것들은 순수하게 사회적이고 영적인 행사들이다; 행성 관리-행정 또는 상승 계획에 관계된 것들조차도 전혀 논의되지 않는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단순히 자신들을 즐기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동료 예루셈 거주자들을 만나기 위해 이 때 모이게 된다. 이 주간(週刊) 이완-휴식에서 주권자에 의해 접대를 받지 않는 집단들은 그들 자신의 본부에서 모인다.

제 3 장. 체계 정부

45:3.1 (512.1) 지역체계의 우두머리 집행자, 체계 주권자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보좌관으로서 기능하는 둘 또는 세 명의 라노난텍 아들들의 후원을 항상 받는다. 그러나 지금은 사타니아 체계가 일곱 라노난텍들로 구성된 한 참모진에 의해 관리-운영 된다:

45:3.2 (512.2) 1. 체계 주권자—라나포지, 1차 계층의 2,709번 그리고 배신자 루시퍼의 후임자.

45:3.3 (512.3) 2. 주권자 첫 번째 보좌관 —만수로티아, 제3 라노난텍들의 17,841번. 그는 라나포지와 함께 사타니아로 파견되었다.

45:3.4 (512.4) 3. 주권자 두 번째 보좌관—사디브, 제3 계층의 271,402번. 사디브 역시 라나포지와 함께 사타니아로 왔다.

45:3.5 (512.5) 4. 체계의 보호관리자—홀단트, 제3 무리단의 19번, 필사자 실존 위에 있는 모든 억류된 영들의 유지자 그리고 통제자. 홀단트도 마찬가지로 라나포지와 함께 사타니아로 왔다.

45:3.6 (512.6) 5. 체계 기록자—빌톤, 사타니아의 라노난덱 사명활동의 비서, 제3조직의 374번. 빌톤은 기원적 라나포지 집단의 일원이었다.

45:3.7 (512.7) 6. 증여 감독자—휘르탄트, 2차 라노난덱들로 구성된 예비자들의 319,847번이며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증여된 이후로 예루셈에 옮겨진 모든 우주 활동들의 임시 감독자, 휘르탄트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1,900년 동안 라나포지의 참모진에 배속되어 왔다.

45:3.8 (512.8) 7. 높은 조연자—하나바르드, 우주 조연자들 그리고 조화-협동자들의 고위 무리단의 일원이며 1차 라노난덱 아들들의 67번. 그는 사타니아의 집행 협의회의 대리 위원장이다. 하나바르드는 루시퍼 반란 이후 예루셈에서 봉사하기 위한 이 계층의 12번째이다.

45:3.9 (512.9) 일곱 라노난덱들로 구성된 이 집행 집단은 루시퍼 반란의 긴급성 때문에 필요하게 된 확대된 응급 관리-행정을 이룩한다. 예루셈에는 오직 하위 법정들만이 있는데 이것은 체계가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행정 단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노난덱 관리-행정은 예루셈 집행협의회, 사타니아의 최고 자문기관의 후원을 받고 있다. 이 협의회는 12명의 위원들로 구성 된다:

45:3.10 (512.10) 1. 하나바르드, 라노난덱 위원장.

45:3.11 (512.11) 2. 라나포지, 체계 주권자.

45:3.12 (512.12) 3. 만수로티아, 주권자 첫 번째 보좌관.

45:3.13 (512.13) 4. 사타니아 멜기세덱들의 우두머리.

45:3.14 (512.14) 5. 사타니아 생명운반자들의 대리감독자.

45:3.15 (512.15) 6. 사타니아 최종자의 우두머리.

45:3.16 (512.16) 7. 사타니아의 기원적 아담, 물질아들들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45:3.17 (512.17) 8. 사타니아 세라핌천사 무리의 지도관.

45:3.18 (512.18) 9. 사타니아 물리통제자들의 우두머리.

45:3.19 (512.19) 10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의 지도자.

45:3.20 (513.1) 11 체계 중도(中途) 창조체들의 대리 지도자.

45:3.21 (513.2) 12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무리단의 대리 우두머리.

45:3.22 (513.3) 이 협의회는 우주 본부에 있는 최고협의회에서 지역체계를 대표할 세 성원들을 주기적으로 선택하지만, 이 대표권은 반란 때문에 정지되었다. 사타니아는 지금 지역우주의 본부에 한 명의 관찰자를 갖고 있지만, 미가엘의 증여 이후로 체계는 에덴시아 입법부에 보낼 열 명의 성원들을 다시 선출해 왔다.

제 4 장. 4명과 20명의 조언자

45:4.1 (513.4) 예루셈에 있는 일곱 천사 거주 순환계들의 중앙에는 유란시아 자문 협의회, 24명의 조언자들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다. 계시자 요한은 그들을 24 장로들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 24 자리들이 있고, 그 자리에 24 장로들이 앉은 것을 내가 보았는데,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이 무리의 중앙에 있는 보좌는 주재하는 천사장의 재판석, 사타니아 전체를 향한 자비와

공의(公義)의 부활 점호의 보좌이다. 이 재판석은 항상 예루셈에 있어 왔지만, 둘러싼 24자리들은 그리스도 미가엘이 네바돈의 충분한 주권자로 고양된 직후인 1,900년 전에야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24 조연자들은 예루셈에 있는 그의 개인적 대리자들이며, 그들은 사타니아의 점호에 관한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그리고 체계의 고립된 세계에 있는 필사자 상승 계획의 다른 많은 단계들에서 주(主) 아들을 대변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들은 가브리엘의 특별 요청과 미가엘의 특수한 명령들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대리자들이다.

45:4.2 (513.5) 이들 4명과-20명의 조연자들은 유란시아의 여덟 종족들로부터 모집되었으며, 이 집단의 마지막은 1,900년 전 미가엘의 부활 점호 때에 가입되었다. 이 유란시아 자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들로 구성된다:

45:4.3 (513.6) 1. 오나가르, "호흡 수여자"에 대한 경배에서 자기 추종자들을 지도하였던, 행성영주-이전(以前) 시대의 주(主) 마음 소유자.

45:4.4 (513.7) 2. 맨산트, "위대한 빛"을 숭배하도록 자기 추종자들에게 지시하였던, 유란시아에서 행성영주 이후 시대의 위대한 선생.

45:4.5 (513.8) 3. 오나모나론톤, 여러 하느님들을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위대한 영"을 숭배하도록 자기 종족들을 지도하였던 사람 그리고 적색 인종의 먼 옛날 영도자.

45:4.6 (513.9) 4. 올란도프, 청색인들의 한 영주였으며 "최극 우두머리"의 신성을 깨닫는데 있어서의 그들의 영도자.

45:4.7 (513.10) 5. 포르쉴타, 멸절된 오렌지색 인종의 예언자였고 "위대한 선생"에 대한 경배하는 일에서 이 민족의 영도자.

45:4.8 (513.11) 6. 싱글랑톤, 자기 민족으로 하여금 많은 것들 대신에 "하나의 진리"를 경배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한 황색들 중 첫 번째. 수천 년 전에 황색들은 유일한 하느님을 알고 있었다.

45:4.9 (513.12) 7. 환타드, 초록색 인종을 어둠으로부터 구해낸 사람이며 "생명의 유일한 근원"을 경배하는 일에서의 그들의 영도자.

45:4.10 (513.13) 8. 오르보논, 남색 종족들의 깨우치는 자이며, 한때 “하느님들의 하느님”에 대한 예배봉사를 이끈 그들의 영도자.

45:4.11 (514.1) 9. 아담, 필사자 육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격하되었지만, 구원되었고 나중에는 미가엘의 명령에 의해 이 위치로 상승된, 하느님의 물질아들인, 불신임 받은 그러나 다시 복귀된 유란시아의 행성 아버지.

45:4.12 (514.2) 10. 이브, 자기 배우자와 함께 불이행에 대한 벌을 받았고 그와 함께 다시 회복되어 생존된 필사자들의 이 집단과 함께 봉사하도록 배정된, 보라색 종족의 어머니.

45:4.13 (514.3) 11. 에녹, 육신 속에서의 필사자 삶을 사는 동안 생각 조절자와 결합된 유란시아의 필사자들 중 첫 번째.

45:4.14 (514.4) 12. 모세, “이스라엘의 하느님”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우주 아버지에 대한 경배 회복의 선동자 그리고 가라앉은 보라색 인종 중, 남은 자를 해방시킨 자.

45:4.15 (514.5) 13. 엘리야, 물질아들 이후-시대 동안의 빛나는 영적 성취로 옮겨진 혼.

45:4.16 (514.6)

14. 마키벤타 멜기세덱, 유란시아 종족들에게 자신을 증여하는 이들 계층의 유일한 아들. 아직 멜기세덱 중의 하나였을 때, 그는 “언제까지나 지고자들의 사명활동자”가 되었는데, 하나의 필사자 상승자로서 봉사의 임무를 영원히 맡으며,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렘에서 필사 육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유란시아에 머물러 있었다. 이 멜기세덱은, 인간의 형태로 자신의 마지막 증여를 체험한 세계의 실재적 행성영주인 미가엘을 대신하여, 예루셈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는 권한을 가진 유란시아의 대리 행성영주로 최근에 임명되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란시아는 4명과 그리고 20명의 조연자로 구성된 회원들, 연속적인 거주 총독들에 의해 아직도 감독을 받고 있다.

45:4.17 (514.7)

15. 세레자 요한, 사람의 아들의 육신에서의 먼 친족, 유란시아에서의 미가엘의 임무의 선구자.

45:4.18 (514.8)

16. 1-2-3 첫째, 칼리가스티아 배반이 있었을 때 가브리엘의 봉사에 동참한 충성된 중도 창조체들의 영도자인데, 미가엘이 무조건적인 주권을 갖게 된 후에 곧 미가엘에 의해 이 위치로 상승되었음.

45:4.19 (514.9) 선택된 이 개인성들은 가브리엘의 요청에 따라서 한동안 상승 제도에서 제외되었으며,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더 이 능력을 가지고 봉사하게 될지 알지 못한다.

45:4.20 (514.10) 17, 18, 19, 20번 자리는 영구적으로 차지되지 않는다. 그것들을 16명의 영구회원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워지는데, 유란시아에서의 현재 증여이후 아들 시대로부터 상승하는 필사자들에게 나중에 배정되도록 열려져 있다.

45:4.21 (514.11) 21, 22, 23, 24번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채워지는데 현재 시대를 반드시 뒤따르게 될 다른 시대 그리고 그 다음 시대들의 위대한 선생들을 위해 남겨져 있다.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신성한 아들들의 예기치 않는 방문들과는 상관없이, 치안법관 아들들 그리고 교사 아들들의 시대, 그리고 빛과 생명의 세월이 유란시아에 예상되어 있다.

제 5 장. 물질 아들

45:5.1 (514.12) 천상의 생명 중 큰 분과들은 예루셈에 그들의 본부와 거대한 영역을 갖고 있는데, 다양한 계층의 아들들, 높은 영들, 특급천사들, 천사들, 그리고 중도 창조체들이

포함된다. 이 놀라운 구역의 중앙 거주지는 물질아들의 주요 성전이다.

45:5.2 (515.1) 아담들의 권역은 예루셈에 새로 도착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력의 중심지이다. 그것은 1,000개의 중심들로 구성되는 거대한 지역이지만, 물질아들과 딸들의 각 가족은 그 구성원들이 우주의 진화 세계들에서 봉사하기 위해 출발할 때까지 또는 파라다이스-상승 생애를 착수할 때까지 가족 자체의 소유지에서 산다.

45:5.3 (515.2) 물질아들들은 진화하는 우주들의 훈련 구체들에서 발견될 수 있는 유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성(性)으로-번식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물질적이다; 행성 아담과 이브도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필사 종족에게 분명하게 보인다. 이 물질아들들은 위로는 신성과 완전성부터, 아래로는 인간성 그리고 물질적 실존에 이르기까지 개인성들의 고리 속에서 맨 마지막 물질적 고리이다. 이 아들들은 거주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행성영주와 영역의 물질 창조체 사이에 상호 접촉할 수 있는 중재를 제공한다.

45:5.4 (515.3) 구원자별에서의 1,000년 마다 등록이 최근에 있었을 때, 지역 체계 수도들에서 시민권 지위를 가진 물질아들과 딸이 네바돈에 161,432,840명 등록되었다. 물질아들의 숫자는 체계들마다 다르며, 그들의 숫자는 자연적인 번식에 의해 계속 증가한다. 그들의 번식 기능이 발휘됨에 있어서 그들은 접촉하는 개인성들의 개인적인 욕구에 의해서 전적으로 인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높은 통치 기관들과 자문 협의회에 의해서도 전적으로 인도되지 않는다.

45:5.5 (515.4) 물질아들과 딸들은 예루셈 그리고 그것에 연관된 세계들의 영구적인 거주자들이다. 그들은 예루셈에서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수도 구체의 지역 행정 속에 자유롭게 참여하는데, 중도자들과 상승자들의 협조를 받아 모든 일상적인 관련사들을 실천적으로 관리-운영한다.

45:5.6 (515.5) 예루셈에서는 이 재생산하는 아들들이 멜기세덱들의 방법을 따라 자아-관리 이상을 실험하도록 허락을 받았으며, 그들은 매우 높은 유형의 사회를 성취하고 있다. 아들신분의 비교적 높은 계층들은 영역의

거부권 기능을 확보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면에서 예루셈 아담-사람은 보편적인 투표권과 대표자 정부에 의해 스스로를 통치한다. 언젠가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완성된 자치권을 부여받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45:5.7 (515.6) 물질아들들의 봉사의 성격은 주로 그들의 나이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으로는 그들이—물질적이며 보통은 특정 행성에 한정되어 있으므로—구원자별의 멜기세덱 대학에 들어가기에는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들은 물질아들의 나이 어린 세대들을 가르치기 위해 각 체계본부에 우수한 선생들로 구성된 교수진을 유지한다. 나이 어린 물질아들과 딸들의 개발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적 그리고 영적 훈련 체계들은 기회와 기술과 실천성에 있어서 완전함의 절정이다.

제 6 장. 상승자들에 대한 아담의 훈련

45:6.1 (515.7) 물질아들과 딸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모든 상승하는 필사자들에게 반드시 주의를 끌게 하고 호기심이 발동되게 하는 매력 있는 장면을 제공한다. 그들은 너희 자신의 물질적인 성(性) 종족들과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너희는 많은 공통되는 흥미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형제우애의 접촉을 이루는 일에 시간을 많이 보낸다.

45:6.2 (515.8) 필사자 생존자들은 우월한 이 반(半) 육체적 성 창조체들의 삶의 습관과 행위성을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체계 수도에서의 자유시간의 많은 부분을 보내는데, 왜냐하면 예루셈의 이 시민들은 그들이 본부 세계에서 시민권을 얻을 때부터 에덴시아를 향해 그들이 떠날 때까지 필사자 생존자들의 직접적인 후원자이며 교사이기 때문이다.

45:6.3 (516.1) 일곱 맨션세계들에서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자신들이 기원된 세계들에서 고난을 당하였던 모든 체험적 궁핍성을 보상받기 위한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유전적인, 환경적인, 또는 육신으로서의 삶의 불행한 조기 사망이든지에 상관없이, 모든 체험적 박탈을 메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은 필사자의 성(性) 생활과 그것에 따른 조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의미에서 진실이다. 수많은 필사자들이 그들의 출생 구체에서의 비교적 평균적인 성(性) 관계에서 나오게 되는 단련으로부터 특별한 유익이 없이 맨션세계에 도착한다.

맨션세계 체험은 매우 개인적인 이러한 박탈을 메우기 위한 기회를 거의 제공해 줄 수가 없다.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성(性)에 따른 체험이 이 상승자들에게는 지나가 버렸지만, 그러나 물질아들과 딸들과의 개별적으로 그리고 또한 그들의 가족들의 일원들로서의 긴밀한 관계적-연합 안에서, 이들 성(性)-결핍된 필사자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 측면에서의 결핍을 메울 수 있다. 그리하여 환경이나 그릇된 판단으로 진화세계에서의 유익한 성(性) 관계적-연합의 혜택을 박탈당한 그들 인간 모두에게는 체계 수도에 있는 영구 거주자인 천상의 아담의과 같은 성(性) 창조체와의 가깝고도 사랑하는 관계적-연합 안에서, 이들 필수적인 필사자 체험을 획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체계 수도에서 주어진다.

45:6.4 (516.2) 생존된 필사자, 중도자, 또는 세라핌천사는 세계들의 진화하는 자녀에 대한 어버이의 관계를 성취하는 고귀한 체험 또는 그것과 유사하고 동등한 다른 체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파라다이스로 상승할 수 없고 아버지를 달성할 수 없으며 최종의 무리단에 들어갈 수 없다. 자녀와 부모의 그 관계는 우주 아버지와 그의 우주

자녀들에 대한 기본적 개념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체험은 모든 상승자들의 체험적 훈련에
필요 불가결한 것이 된다.

45:6.5 (516.3) 상승하는 중도 창조체들과 진화 세라핌천사들은
체계 본부의 물질아들들 그리고 딸들과 관계적-
연합함으로써 부모로서의 이 체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래서 재생산하지 않는 그러한 상승자들은 예루셈
아담들과 이브들의 자손을 기르고 훈련하는 일에 그들을
도움으로써 부모로서의 체험을 성취한다.

45:6.6 (516.4) 진화적인 세계들에서 부모 관계를 체험하지 않은
모든 필사자 생존자들은 예루셈 물질아들들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리고 뛰어난 이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부모 연관-동료들로서 필수적인 이 훈련 역시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필사자들이 예루셈의 첫 번째
과도기-문화 세계에 있는 체계 유치원에서 그들의 결핍을
보상받을 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이것이 적용된다.

45:6.7 (516.5) 사타니아의 이 실습 유치원은 자녀를 기르는 이
일에 헌신되어 있는 행성의 절반인, 최종자 세계에서
특정한 모론시아 개인성들에 의해 운영된다. 생존되는

필사자들의 어떤 자녀들이 여기에 받아들여지고
집합되는데, 개별존재들로서의 영적 상태를 획득하기
전에 진화 세계들에서 죽은 그 자녀들이 해당된다.
자연적인 부모들 중 어느 쪽이든 상승하면 영역들의
그러한 필사자 자녀는 체계 최종자 행성에서
재(再)개인성구현되도록 허용되고 필사자의 상승에
있어서의 부모의 경로를 따르기로 그가 선택하든지 안
하든지에 상관없이 그 이후의 자유의지 선택에 의해
실증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허락을 받는 것을 보장한다.
여기에서 자녀들은 성적(性的) 구별이 없는 것을 제외하면
태어난 세계에서와 똑같이 출현한다.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서의 삶의 체험 이후에는 필사자와 비슷한 번식은
거기에 없다.

45:6.8 (517.1) 최종자 세계에 있는 보호관찰 보육원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녀들을 가졌던, 그리고 기본적인
아버지의 체험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 맨션세계 학생들은,
맨션세계들에서의 상승 임무들로부터 최종자 세계로 잠시
그들이 옮겨질 수 있게 하는 허락을 멜기세덱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그리고 다른
자녀들에게 연관-동료 부모들로서 기능하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어버이의 사명활동의 이 봉사는 그러한
상승자들이 물질아들들과 딸들의 가족들 안에서
체험하도록 요구되는 그 훈련의 절반을 성취한 것으로서
예루셈에서 나중에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45:6.9 (517.2) 실습 유치원 자체는 1,000쌍의 물질아들들과
딸들에 의해 관리되는데, 그들은 그들 조직의 예루셈
거류민단으로부터 자원한 자들이다. 사타니아의
아(亞)중간 세계로부터 구원자별의 최종자 구체들 사이에
있는 그들의 유보된 특별 세계들에게 계시되지 않은
운명에 이르는 그들의 길에서 이 봉사를 하기 위해 여기에
멈춘 동일한 숫자의 자원자 아(亞)중간 부모 집단이 즉시
그들에게 협조한다.

제 7 장. 멜기세덱 학교

45:7.1 (517.3) 멜기세덱들은 예루셈과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세계들 그러나 특별히 일곱 맨션세계들에서 매우
훌륭하게 기능하는 큰 무리단의 강사들—부분적으로
영성화된 의지적 창조체들과 다른 존재들—의
지도자들이다. 이곳들은 억류하는 행성들인데, 그곳에서
육신 속에서 사는 동안 그들의 내주하는 조절자들과

융합을 성취하지 못한 필사자들이 과도기 형태로, 더 많은 도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적 달성을 위한 그들의 분투, 죽음에 의해 미숙하게 중단된 바로 저들 노력들을 계속할 수 있는 확장된 기회를 누리려고 복귀되는 곳이다. 또는 만일 유전적 불이익이나 불리한 환경 또는 환경들의 상황 때문에 이 혼(魂) 달성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유야 어떠하였든지 목적이 참되고 영적으로 가치가 있는 모든 자들은 자신들을 발견하며, 있는 그대로, 계속되는 행성들 위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영원한 생애의 기본들을 통달하는 것, 그들이 육신 속에서의 일생 동안에 획득 할 수 없었든지 아니면 하지 않았던 특색들을 소유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45:7.2 (517.4) 찬란한 저녁별들(그리고 그들의 이름없는 조화-협동자들)은 멜기세덱들에 의해 후원을 받는 그들을 포함하여, 우주의 다양한 교육 기관들에서 선생들로서 자주 봉사한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도 그렇게 하며, 그들은 진보적인 이 훈련 학교들에게 파라다이스 완전의 촉감을 나누어 준다. 그러나 이 활동들 전체가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증진에만 배타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며;

많은 것들은 네바돈의 토착 영 개인성들의 진보적 훈련에도 똑같이 종사하고 있다.

45:7.3 (517.5) 멜기세덱 아들들은 예루셈에 있는 서로 다른 30개 교육 중심들을 위쪽 방향으로 지휘한다. 이 훈련 학교들은 자아-평가의 대학으로 시작하고 예루셈 시민권의 학교로 끝나는데, 그곳에서는 물질아들들과 딸들은 대리 정부의 높은 의무들을 맡을 수 있도록 필사자 생존자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려는 그들의 최극의 노력에서 멜기세덱들 그리고 다른 존재들과 연관한다. 전체 우주는 대표적인 계획에 따라 조직되고 운용 관리-운영된다. 대의 정치는 비(非)완전 존재들 사이에 있는 자치-정부의 신성한 이상이다.

45:7.4 (517.6) 우주 시간으로 100년마다 각 체계는 별자리 입법부에 참여할 10명의 대표자들을 선출한다. 그들은 1,000명의 예루셈 협의회에 의해, 이양되거나 지정된 그러한 모든 사안에서 체계 집단을 대표하는 임무를 지닌 선출기관으로 선택된다. 모든 대표자들 또는 다른 사절단들은 1,000명의 선거인들로 구성된 협의회에 의해 선출되며, 그들은 가장 높은 학교인 멜기세덱 관리-행정

대학을 졸업해야만 하는데, 1,000명의 선거인 집단을 구성하는 그들 모두도 마찬가지이다. 이 학교는 멜기세덱들에 의해 육성되는데, 최근에는 최종자가 돕고 있다.

45:7.5 (518.1) 예루셈에는 많은 선거 기관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때때로 시민권을 가진 세 계층들—물질아들들과 딸들, 세라핌천사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 중도 창조체들을 포함하여, 상승하는 필사자들—에 의해 피선되어 권한을 갖는다. 대표자 지위에 지명되기 위하여 후보자는 멜기세덱 관리-행정 학교들로부터 필수적인 인정을 받아야만 하다.

45:7.6 (518.2) 예루셈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이 세 집단들 사이에 선거권이 보편적인 것이지만, 투표는 모타—모론시아 지혜—에 대한 인정되고 등록된 개인적 소유에 따라서 다르게 행해진다. 어떤 한 개인성에 의한 예루셈에서의 투표는 하나부터 1,000개에 이르는 범위의 가치를 갖는다. 예루셈 시민들은 그들의 모타 성취도에 따라 그렇게 분류된다.

45:7.7 (518.3) 예루셈 시민들은 때때로 멜기세덱 시험관들에게 자신을 보이는데, 그들은 모론시아 지혜에 대한 그들의 달성도를 증명한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찬란한 저녁별들 또는 그들이 지명하는 자들로 구성된 시험하는 무리단 앞으로 가는데, 그들은 영 통찰력의 정도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그들은 24 조연자들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들 현존 앞에 나타나는데, 그들은 사회화에 대한 체험적 달성의 그들의 지위를 승인한다. 이 세 요소들은 그 다음에 대리 정부의 시민권 등록자에게 전달되는데, 그들은 모타 지위를 재빨리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 선거권의 분별된-자격을 배정한다.

45:7.8 (518.4) 멜기세덱들의 감독 아래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특별히 새로운 모론시아 차원들에서 그들의 개인성 통일을 더디게 이룩한 그들은, 물질아들들에 의해 돌봄을 받으며 그러한 결손을 교정하도록 고안된 집중적인 훈련에 들어간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이 물질아들들이 모타 개인성—생각 조절자의 영적 전반적-통제에 의해 둘 모두 정당하게 섞인, 싹트기 시작하는 모론시아 생애와 체험적으로의 관계적-연합 속에 완성된 필사자 실존을 혼합하는 개별성—의 성취를 보증할

때까지 별자리의 더욱 확장되고 다양한 사회화 생애를 위해 체계 본부를 떠날 수 없다.

45:7.9 (518.5) [유란시아에 일시적으로 배정된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46 편 지역체계 본부

46:0.1 (519.1) 사타니아의 수도인 예루셈은 한 지역 체계의 표준적인 수도이며, 루시퍼 반란과 유란시아에 대한 미가엘의 증여에 의해 야기된 수많은 불규칙성들을 제외하면, 그것은 유사한 구체들 중에서 전형적인 상태에 있다. 너희의 지역체계는 폭풍우와 같은 어떤 체험들을 거쳐 왔지만, 지금은 가장 효과적으로 운용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시대들이 지나감에 따라, 부조화의 결과들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근절되어가고 있다. 질서와 선한 뜻이 회복되고 있으며, 예루셈의 환경들은 너희에게 구전(口傳)된 천상의 지위들로 점점 더 접근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체계 본부가 20 세기 종교인들의 대부분이 상상하는 천국과 같기 때문이다.

제 1 장. 예루셈의 물리적 측면

46:1.1 (519.2) 예루셈은 1,000개의 위도(緯度) 부분들로 그리고 10,000개의 경도(經度) 구역들로 나뉘어 있다. 구체는 7개 주요 수도들과 70개의 보조 행정-관리적 중심들을 갖고 있다. 7개의 구역 본부들은 다양한 활동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체계 주권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그 각각을 방문한다.

46:1.2 (519.3) 예루셈의 표준 거리 1마일은 유란시아의 약 7마일에 해당한다. 표준 무게인 "그래던트"는 성숙된 극자로부터 10진법 소수의 체계를 통해 형성되며 너희의 무게 단위의 10온스를 거의 정확하게 대표한다. 사타니아의 하루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1시간 4분 15초가 모자라는 3일과 같으며, 예루셈을 축으로 도는 시간이다. 체계의 1년은 예루셈의 100일로 구성된다. 체계의 시간은 주(主) 크로놀덱들에 의해 방송되어진다.

46:1.3 (519.4) 예루셈의 에너지는 구역 경로들 안에서 훌륭하게 통제되고 구체를 회전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우주의 에너지 충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공급받고 주(主)물리통제자들에 의해 노련하게 운용 관리-운영된다. 끌어들이는 기능을 하는 물리적 계통들을 두루 통하여,

이들 에너지의 통과에 대한 자연적 저항은 예루셈의 균등한 온도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열을 산출한다. 빛이 충만할 때 온도는 약 화씨 70도를 유지하는 반면, 빛이 줄어드는 기간 동안에는 50도 미만으로 떨어진다.

46:1.4 (519.5) 예루셈의 빛 체계는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낮과 밤이 없으며, 덥고 추운 계절도 없다. 힘 변환자들이 100,000개의 중심들을 유지하는데, 그것들로부터 심원한 에너지들이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면서 그것들이 구체의 전기적 대기-천정에 도달할 때까지 행성 대기를 통해 위로 구체적으로 투사된다; 그 다음에 이 에너지들은 태양이 아침 10시경에 위에서 비출 때 유란시아 태양의 강도와 비슷한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평온한 빛으로서 반영되어 내려온다.

46:1.5 (520.1) 그러한 빛의 조건 아래에서, 그 광선들은 한 곳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마치 모든 우주 방향으로부터 동일하게 발산되면서 하늘에서 뿌려지는 것과 같다. 이 빛은 비교적 매우 적은 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자연적인 태양광과 매우 흡사하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본부 세계들이 우주에서

빛을 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것이다; 만일 예루셈이 유란시아에 매우 근접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46:1.6 (520.2) 예루셈 위쪽 전리층으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이 빛-에너지를 반영하는 기체들은 너희가 소위 북쪽의 빛이라고 부르는 오로라 현상들이 다른 이유들에 의해 산출된다 하더라도 그것들과 관계되는 유란시아의 위쪽 대기층들에서 발생하는 것들과 매우 흡사하다. 유란시아에서 지상 방송 파동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바로 이와 동일한 기체막인데, 그것들이 똑바로 밖을 향해 날아가다가 이 기체층에 부딪히게 되면 다시 지구 쪽으로 반사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그것들이 너희 세계를 둘러싼 공기를 통과하면서 표면 가까이에 방송이 이루어지게 한다.

46:1.7 (520.3) 구체의 이 빛은 예루셈 하루의 75% 동안 한결같이 유지되며, 그 다음에는 최소 밝기가, 청명한 날 밤에 너희에게 보름달이 떴을 때와 비슷한 빛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이때는 예루셈 전체에서 고요한

시간이다. 오직 방송-수신소 만이 휴식과 복귀의 이 기간 동안 운용 중에 있다.

46:1.8 (520.4) 예루셈은 근처에 있는 여러 태양들로부터 희미한 빛—빛나는 별빛과 같은—을 받아들이지만 그것들에게 의존하지는 않으며, 예루셈과 같은 세계들은 태양 교란의 변화에 지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어가거나 죽어가는 태양의 문제들과도 상관이 없다.

46:1.9 (520.5) 일곱 과도기 연구 세계들과 그것들의 49개 위성들은 예루셈 기법에 의해 열과 빛과 에너지와 물을 공급받는다.

제 2 장. 예루셈의 물리적 특성

46:2.1 (520.6) 예루셈에서 너희는 그곳이 지진도 없고 비도 없기 때문에 유란시아 그리고 다른 진화된 세계들의 울퉁불퉁한 산맥들을 볼 수 없게 되지만, 아름다운 고지대들과 기타 독특하게 다양한 지형과 풍경을 즐기게 될 것이다. 예루셈의 거대한 지역이 “자연적인 상태”로 보존되고 있으며, 그러한 지역들의 풍경은 인간의 상상력을 크게 초월한다.

46:2.2 (520.7) 거기에는 수많은 작은 호수들이 있지만 세차게 흐르는 강들도 없고 광대한 바다들도 없다. 고안건축의 세계들 어느 곳이든지 거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며 폭풍이나 눈보라도 없지만, 빛의 감소에 수반되는 최저 온도의 기간 동안 습기 응축의 강우(降雨)가 매일 발생된다(이슬이 맺히는 온도는 유란시아와 같은 두-기체 행성보다 세-기체 세계에서 더 높다.). 물리적인 식물 생명 그리고 모론시아 세계 생명은 둘 모두 습기를 필요로 하지만, 이것은 구체 전체에 해당하는, 심지어 고지대들의 최고 높은 곳까지 이르는 순환 하층토(下層土) 체계에 의해 주로 공급된다. 이 물 체계는 전반적으로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짝이는 예루셈의 호수들을 서로 연결하는 많은 수로들이 있기 때문이다.

46:2.3 (520.8) 예루셈의 대기는 3-기체 혼합이다. 이 공기는 모론시아 생명 조직의 호흡에 적당한 기체를 포함한 유란시아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이 세 번째 기체는 물질적인 계층을 갖는 동물 또는 식물의 호흡에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적당하다.

46:2.4 (521.1)

교통 체계는 에너지 이동의 순환 흐름들과
결연되어 있는데, 이 주요 에너지 흐름들은 10마일
간격으로 위치하고 있다. 물리적 기능구조들의 조절에
의해 행성의 물질적 존재들은 시간당 2 백에서 5 백 마일에
이르는 속도로 나아갈 수 있다. 운송용 새들은 한 시간에
100 마일 정도를 날아갈 수 있다. 물질아들들의 공중
기능구조 장치들은 시간당 약 500 마일을 여행할 수 있다.
물질적 존재 그리고 초기 모론시아 존재들은 이 기계적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되지만, 영 개인성들은 에너지의
상급 기세와 그리고 영 근원들과 연락함으로써 움직인다.

46:2.5 (521.2)

예루셈과 그것에 연관된 세계들은 네바돈의
고안건축 구체의 물리적 생명 특징을 가진 10개의 표준
분야들을 자질로서 부여받고 있다. 그리고 예루셈에서는
유기체적 진화가 없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생명
형태들이 없고, 실존을 위한 투쟁도 없으며, 적자생존도
없다. 오히려 거기에는 중앙 그리고 신성한 우주의 영원한
세계들의 아름다움과 조화 그리고 완전을 예시하는
창조적 적응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적 완전 속에는
천상의 거장과 그들의 동료들에 의해 예술적으로 대조를

이론 물리적 그리고 모론시아 생명의 가장 놀라운 혼합이 존재한다.

46:2.6 (521.3) 예루셈은 정말로 파라다이스와 같은 영광과 장엄함을 맛보는 곳이다. 그러나 너희는 설명을 통해서라도 이 영화로운 고안건축의 세계들에 대한 적당한 개념을 결코 획득할 수 없다. 너희들 세계에는 조금이라도 비교될 만한 것이 없으며, 예루셈의 물체들조차도 유란시아의 물체들을 너무나 초월하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괴상망측하다. 너희가 실재적으로 예루셈에 도착할 때까지, 너희는 천상의 세계들에 대한 참된 개념과 비슷한 어떤 것도 간직할 수 없지만, 체계 수도에서 너희가 갖게 되는 체험이 우주와 초우주 그리고 하보나의 보다 먼 훈련 구체에 너희가 언젠가 도착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것은 미래에서 그리 오랜 기간도 아니다.

46:2.7 (521.4) 예루셈의 제조 또는 실험 권역은 하나의 광대한 영토인데, 거기에는 연기가 나는 굴뚝이 없기 때문에 유란시아인들이 거의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특별한 이 세계들과 연관된 복잡한

물질적 경제가 존재하며, 너희들 가운데 가장 체험이 많은 화학자들과 발명가들을 놀라게 하고 심지어는 경이롭게 만들 기계적인 기법과 물리적 성취들의 완전이 거기에 있다. 파라다이스 여행에 있어서 억류하는 이 첫 세계가 영적이기보다는 훨씬 더 물질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하기 위해 잠시 멈추어 보자. 예루셈 그리고 그것의 과도기 세계들에서 너희가 머무는 전체 기간에 걸쳐서 너희는 진보하는 영 실존의 너희 후대 삶보다는 물질적 물체들과 함께 한 지구상에서의 너희 삶에 훨씬 더 가까울 것이다.

46:2.8 (521.5) 세라핌천사 산(山)이 예루셈에서 가장 높는데, 거의 15,000피트에 이르며, 모든 운송 세라핌천사가 출발하는 지점이다. 행성 중력을 탈피하기 위한 그리고 공기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초기 에너지 공급에 수많은 기계적 개발품들이 이용된다. 세라핌천사의 운송은 낮 시간에 두루 그리고 어떤 때에는 빛이 줄어드는 깊은 밤까지 유란시아 시간으로 3초마다 출발한다. 운송자들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매초 25 표준 마일로 출발하며 예루셈으로부터 2,000마일을 지나갈 때까지는 표준 속도에 도달하지 않는다.

46:2.9 (521.6) 운송자들은 수정 별판에 도착하는데, 유리 바다라고 불린다. 이 지역 근처에는 세라핌천사 운송체에 의해 우주를 건너가는 다양한 계층의 존재들을 받아들이는 장소이다. 학생 방문자들을 받아들이는 수정 같은 극 지점 가까이에서 너희는 진주처럼 생긴 관측소로 올라갈 수 있으며 전체 본부 행성의 거대한 부조(浮彫) 지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예루셈 방송

46:3.1 (522.1) 초우주 그리고 파라다이스-하보나 방송들은 극 수정, 유리 바다를 포함하는 기법에 의해 그리고 구원자별과 관계하여 예루셈에서 받아들여진다. 이 임시-네바돈 통신들을 접수-수신을 위한 준비 이외에, 구별된 세계 집단의 수신소들이 있다. 분리되었지만 삼중-순환 집단의 이 장소들은 지역 세계들로부터, 별자리 본부들로부터 그리고 지역우주의 본부로부터 오는 방송의 접수활동에 조절되어 있다. 이 모든 방송들은 중앙 방송 극장에 참여한 모든 유형의 존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상연된다; 예루셈에 있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위한 모든 문제들 중에서 어떤 것도, 우주 공간

보고들로 이루어진 끝없는 흐름들에서 들려지는 그것보다 더 매력이 있거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46:3.2 (522.2) 이 예루셈 방송-수신소는 융통성 있는 수많은 영 개인성들 이외에 유란시아에 대개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50억 명이 넘는 존재들—물질 그리고 모론시아—을 앗히는 번쩍거리는 물질들로 건축된 하나의 거대한 원형극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곳에서 우주의 복지와 상태를 배우기 위해 방송국에서 그들의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예루셈 전체에게 매우 좋아하는 기분전환이다. 그리고 이것은 빛이 줄어드는 동안에도 지체되지 않는 유일한 행성 활동이다.

46:3.3 (522.3) 이 방송-수취 원형극장에 구원자별 메시지들이 계속적으로 도착한다. 가까운 곳에서, 지고자 별자리 아버지의 에덴시아 연설이 하루에 적어도 한 번 받아들여진다. 유버사의 규칙적인 방송과 특별 방송이 구원자별을 통해 주기적으로 전달되며, 파라다이스 메시지들이 접수될 때, 모든 인원들이 유리 바다에 집합하고, 유버사 친구들은 들은 모든 것이 보일 수 있도록 파라다이스 방송의 기법에 반영성 현상을 첨가한다.

그리고 영원한 모험 여행을 향하여 그들이 안쪽으로 여행할 때 필사자 생존자들에게 제공되는 앞서가는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대한 계속적인 예상은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46:3.4 (522.4) 예루셈 출발 정거장은 구체의 반대 극지점에 위치해 있다. 개별적 세계들에 대한 모든 방송들은 미가엘 메시지들을 제외하고 체계 본부로부터 전달되는데, 그것들은 때로 천사장의 순환회로 위에서 그것들의 도착지로 직접 날아간다.

제 4 장. 거주지와 행정 지역

46:4.1 (522.5) 예루셈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거주지로 배정된 반면, 체계 수도의 다른 부분들은 619개의 거주민이 사는 구체들과 56개 과도기-문화 세계들 그리고 체계 수도 자체의 관련사들에 대한 감독을 포함하는 필연적 행정-관리적 기능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 예루셈에서 그리고 네바돈에서 이 배열들은 다음과 같이 고안되어 있다:

46:4.2 (522.6) 1. 순환계 원형(圓形)—비(非)원주민 거주지역.

46:4.3 (522.7) 2. 정사각형—체계 집행-행정-관리적 지역.

46:4.4 (522.8) 3. 직사각형—하급 토착 생명의 집결지.

46:4.5 (522.9) 4. 삼각형—지역 행정-관리적 지역 또는 예루셈 행정-관리적 지역.

46:4.6 (522.10) 체계 활동들을 원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그리고 삼각형들로 이렇게 배열한 것은 네바돈의 모든 체계에 공통적이다. 다른 우주에서는 전혀 다른 배열이 통용될 수 있다. 이것들은 창조자 아들들의 다양한 계획들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들이다.

46:4.7 (523.1) 이 주거 지역과 행정-관리적 지역에 대한 우리들의 설명은 하느님의 물질아들들, 예루셈의 영원한 시민들의 광대하고도 아름다운 땅들과는 상관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 창조체 그리고 영에 가까운 창조체들의 수많은 다른 매혹적인 계층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예루셈은 체계 기능을 위한 설계에 해당하는 스피롱가의 효율적인 봉사를 즐긴다. 이 존재들은 초물질적 거주자들 그리고 방문자들을 대신하여 영적인 사명활동에 헌신되어 있다. 그들은 모든 모론시아 창조체들의 유지와 장식을 위하여 일하는 모론시아 조력자들의 그리고 비교적 높은 모론시아 창조체들의

과도기 하인들이 지능적이고 아름다운 존재들로 이루어진 훌륭한 집단이다. 그들은 중도 창조체들이 유란시아에 존재하는, 중도 조력자들이 물질과 영 사이에서 기능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루셈에 있다.

46:4.8 (523.2) 체계 수도들은 그것들이 우주 실존의 세 단계들 즉: 물질적, 모론시아적, 영적 단계들 모두를 거의 완벽하게 나타내는 유일한 세계들이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너희가 물질적, 모론시아적, 또는 영적 개인성이든지, 너희는 예루셈에서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중도 창조체들과 물질아들들과 같은 병합된 존재도 그러하다.

46:4.9 (523.3) 예루셈은 물질적 유형과 모론시아 유형의 거대한 건물들을 갖고 있는 반면, 순전히 영적인 구역들의 장식은 비교적 덜 멋지고 덜 충만하다. 예루셈의 경이로운 물리적 장치들에 대하여 모론시아에 해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들을 내가 갖고 있었더라면! 이 본부 세계의 영적인 성취들에 대한 장엄한 위엄과 정교한 원숙함을 계속 설명할 수 있었더라면! 설비의 아름다움과 충만함의 극치에 대한 너희의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개념도 이 장관에는 도저히 미칠 수 없다. 그리고 예루셈은

파라다이스 아름다움의 숭고한 완전함에 이르는 길에서
첫 발걸음에 불과하다.

제 5 장. 예루셈 순환계

46:5.1 (523.4) 우주 생명의 주요 집단들에게 배정된 거주
예정지들은 예루셈 순환계들을 가리킨다. 이
이야기들에서 발견되는 그 순환계 집단들은 아래와 같다:

46:5.2 (523.5) 1. 하느님의 아들들의 순환계들.

46:5.3 (523.6) 2. 천사들과 비교적 높은 영들의 순환계들.

46:5.4 (523.7) 3.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에게 배정되지 않는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을 포함하는, 우주 도움자들의
순환계들.

46:5.5 (523.8) 4. 주(主)물리통제자들의 순환계들.

46:5.6 (523.9) 5. 중도 창조체들을 포함하여, 배정된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순환계들.

46:5.7 (523.10) 6. 우대거류민들의 순환계들.

46:5.8 (523.11) 7. 최종의 무리단의 순환계들.

46:5.9 (523.12) 이 거주지 집단화들 각각은 일곱 개의 동심원
그리고 연속적으로 고양된 순환계들로 구성된다.
그것들은 모두 같은 계통을 따라 건설되었지만 크기가
다르고 다른 물질들로 형성되어 있다. 그것들은 모두
멀리까지 이르는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들은 일곱
동심원 순환계들로 이루어진 각 집단을 전반적으로
포위하는 광범위한 행렬들을 형성하기까지 올라간다.

46:5.10 (524.1) 1. 하느님의 아들들의 순환계들. 하느님의
아들들이 자기 자신들의 한 사회적 행성, 과도기-문화
세계들 중 하나를 갖고 있더라도, 그들은 또한 예루셈에서
이 광대한 지역들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의 과도기-문화
세계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신성한 아들관계의 다른
모든 계층들과 자유롭게 섞일 수 있다. 거기에서 너희는 이
아들들을 직접적으로 알고 사랑하게 되겠지만, 그들의
사회생활은 이 특별 세계와 그것의 위성들에게 주로
국한되어 있다. 아무튼, 예루셈 순환계에서는, 아들관계의
다양한 이 집단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 관찰될 수 있다.
그리고 모론시아 시야가 거대한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너희는 아들들의 산책길을 걸을 수 있고 그들의 수많은
계층들의 흥미를 자아내는 활동들을 내려다볼 수 있다.

46:5.11 (524.2) 아들들의 이 일곱 순환계들은 바깥의 더 큰 순환계들 각각이 안쪽의 보다 작은 것들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동심원을 이루고 있고 연속적으로 상승되어 있는데, 공공의 산책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성벽들은 번쩍이는 광도를 가진 수정 보석들로 건축되어 있으며 그것들 각각의 거주지 순환계들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로 상승되어 있다. 이 벽들 각각을 통과하는 많은 문들—50개부터 150,000개까지—은 하나의 진주 같은 수정으로 되어 있다.

46:5.12 (524.3) 아들들의 영토의 첫 번째 순환계는 치안법관 아들들과 그들의 개인 참모진들에 의해 차지되어 있다. 이 사법적 아들들의 증여와 판결 봉사에 해당되는 계획들 그리고 직접적 활동들 모두가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다. 체계의 아보날들이 우주와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 역시 이 중심지를 통해서이다.

46:5.13 (524.4) 두 번째 순환계는 삼위일체 아들들이 차지하고 있다. 신성한 이 영토에서는 데이날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이 새롭게 도착된 1차 교사 아들들에 대한 훈련을 더 진행시킨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 속에서 그들은 찬란한

저녁별들의 특정 조화-협동 부서에 의해 훌륭한 도움을 받는다.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은 데이날 순환계의 한 지역을 차지한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지역체계 안에서 우주 아버지의 거의 개인적인 대리자가 될 정도에 이르며; 그들은 적어도 삼위일체-기원 존재들이다. 이 두 번째 순환계는 예루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범하게 흥미로운 영토이다.

46:5.14 (524.5) 세 번째 순환계는 멜기세덱들에게 맡겨져 있다. 여기에서 체계 우두머리들이 거주하며 이 다재다능한 아들들의 거의 끝없는 활동들을 감독한다. 맨션세계들 중에서 첫 번째로부터,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예루셈 생애 전체에 이르기까지, 멜기세덱들은 양아버지들이며 항상-제시되어 있는 충고자들이다. 물질아들들과 딸들의 항상-제시되어 있는 활동들을 제외하고, 그들이 예루셈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6:5.15 (524.6) 네 번째 순환계는 다르게 제공되지 않은 방문자 그리고 관찰자 아들들의 다른 모든 계층들과 보론다덱들의 고향이다. 지고자 별자리 아버지들은 지역 체계에 검열을 위한 방문을 할 때 이 순환계에 거주지를

정한다. 지혜의 완전자들, 신성한 조언자들, 그리고 우주
검열자들은 모두 체계에서 일할 때 이 순환계에 거주한다.

46:5.16 (524.7) 다섯 번째 순환계는 체계 주권자들과
행성영주들의 아들관계 계층인 라노난덱들의 거주지이다.
그 세 집단들은 이 영토에서 쉴 때 하나로 섞인다. 체계
예비자들이 이 순환계에서 모이는 반면, 체계 주권자는
관리-행정 고지에 있는 구조물들의 통치하는 집단의
중심지에 위치한 하나의 성전을 갖고 있다.

46:5.17 (524.8) 여섯 번째 순환계는 체계 생명운반자들이 머무는
곳이다. 이 아들들의 계층들 전체가 여기에서 모이며,
그들은 이곳으로부터 그들의 세계 임무를 향해 나아간다.

46:5.18 (524.9) 일곱 번째 순환계는 상승하는 아들들의
집결지인데, 그들은 그들의 세라핌천사 동료들과 함께
체계 본부에서 일시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배정된
필사자들이다. 예루셈 시민권보다 높은 신분에 있고
최종자의 신분보다는 낮은, 그 전에 필사자였던 모든
존재들은 이 순환계에 그 본부를 갖고 있는 집단에
소속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46:5.19 (525.1) 아들들의 이들 원형의 특별보호구역은 하나의 거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1,900년 전까지 거기에는 그 중앙에 하나의 거대한 열린 공간이 존재했다. 이 중앙 지역에는 현재 미가엘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 약 500년 전에 완성되었다. 495년 전, 이 성전이 바쳐졌을 때, 미가엘이 직접 나타났었고, 예루셈 전역은 사타니아에서 가장 작은 유란시아에서의 주(主)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미가엘 기념관은 현재, 가장 최근에 옮겨심은 구원자별 활동들 대부분을 포옹하여, 미가엘의 증여에 의해 발생된 체계에 대한 수정된 운용 관리에 내포되는 모든 활동들의 중심지이다. 기념관의 요원들은 백만 명 이상의 개인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46:5.20 (525.2) 2. 천사들의 순환계들. 아들들의 주거 지역과 마찬가지로, 천사들의 이 순환계들은 일곱 동심원들과 연속적으로 상승된 순환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각각은 안쪽에 있는 지역들을 내려다보게 되어 있다.

46:5.21 (525.3) 천사들의 첫 번째 원형지역은 본부 세계에 머물게 되는 무한한 영의 높은 개인성들—단독 메신저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이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원형지역은 때때로 예루셈에서 기능하기도 하는, 메신저
무리, 기술 조언자들, 동행자들, 검열자들, 그리고
기록자들에게 바치어져 있다. 세 번째 원형지역은 비교적
높은 계층들과 집단들의 사명활동 영들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

46:5.22 (525.4) 네 번째 순환계는 행정-관리자 세라핌천사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사타니아와 마찬가지로 지역체계에서
봉사하는 세라핌천사들은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이다.
다섯 번째 순환계는 행정-관리자 세라핌천사들이
차지하는 반면, 여섯 번째는 과도기 사명활동자들의
고향이다. 일곱 번째 순환계는 세라핌천사들 중 계시되지
않은 특정한 계층들이 머무는 구체다. 이 모든 집단의
천사들 중 기록자들은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 머물지
않는데, 예루셈 기록 성전에 거주한다. 모든 기록들은 이
삼중적 보관소에 세 복사본으로 보관되어 있다. 체계
본부에서는, 기록들이 물질적 형태, 모론시아 형태, 그리고
영 형태로 항상 보관된다.

46:5.23 (525.5) 이 일곱 순환계들은 둘레가 5,000 표준 마일에
해당하는 예루셈의 파노라마 전시(展示)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은 사타니아의 사람이 사는 세계들의 진보하는 지위를 표현하는 일에 매달려 있으며 각각의 행성에 대한 최근의 상황을 정확하게 다시 보여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수정된다. 나는 너희가 너희의 초기 방문에서 확장된 여가 시간을 갖도록 허락되었을 때 천사들의 순환계들을 내려다보는 이 광대한 산책로가 너희의 주의를 끄는 예루셈의 첫 번째 광경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46:5.24 (525.6) 이들 전시는 예루셈의 원주민 생명이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들은 에덴시아로 가는 도중에 예루셈에 머물고 있는 여러 사타니아 세계들로부터 온 상승자들의 도움을 받는다. 행성 상황과 세계 진보에 대한 묘사는, 일부는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여러 방법들에 의해, 그러나 대부분은 유란시아에 알려진 기법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전시회는 이 광대한 성벽의 외부 끝자락을 차지한다. 그 산책로의 나머지는 거의 전반적으로 열려진 상태인데, 높게 그리고 장엄하게 장식되어 있다.

46:5.25 (525.7) 3. 우주 도움자들의 순환계들은 거대한 중앙 공간에 위치해 있는 저녁별들의 본부를 갖고 있다.

여기에는 이 능력있는 특급천사들의 연관-동료 수장(首長)인 갈란티아의 체계 본부가 위치해 있는데, 상승자 저녁별들 전체 중에서 첫 번째로 임명된다. 이것은 그것이 더욱 최근에 건축된 것들 중의 하나일지라도 예루셈의 행정-관리적 지역들 전체 중에서 가장 장엄한 것들 중 하나이다. 이 중심지는 직경이 50마일이다. 갈란티아 본부는 전적으로 투명한 하나의 단일체 주조(鑄造) 수정이다. 이 물질-모론시아 수정들은 모론시아 존재와 물질적 존재 둘 모두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는다. 창조된 저녁별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예루셈 전역에서 행사하는데, 그러한 특별 개인성 특성들을 소유하고 있다. 전체 세계가 영적으로 향기로운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활동 대부분이 구원자별로부터 이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46:5.26

(526.1)

4. 주(主)물리통제자들의 순환계들.

주(主)물리통제자들의 다양한 계층들은 힘 있는 거대한 성전 주변에 동심원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의 우두머리와 관계적-연합하여 체계의 힘 우두머리를 통솔한다. 힘이 있는 이 성전은 상승하는 필사자들과 중도 창조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예루셈에 있는 두 지역들 중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물질아들들의 지역에 있는 비(非)물질화 된 구역, 실존하는 모론시아 계층의 그것과 매우 비슷한 상태 속으로 운송 세라핌천사들이 물질적 존재들을 변환시키는 일련의 실험실이다.

46:5.27 (526.2) 5.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순환계들.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순환계들의 중앙 지역은 체계의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을 대표하는 619개 행성 기념관들의 한 집단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구조물들은 주기적으로 광범위한 변화를 겪는다. 때때로 그들의 행성 기념관들에게 변경과 추가가 있음을 동의하는 것은 각 세계로부터 온 필사자들의 특권이다. 많은 변화들이 지금도 유란시아 구조물들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 619개 성전들의 중앙은 에덴시아 그리고 상승하는 문화를 가진 그것의 여러 세계들의 한 실용적인 모형이 차지하고 있다. 이 모형은 직경이 40마일이며, 모든 면에서 원형틀과 다름이 없는 에덴시아 체계의 실재적 복제물이다.

46:5.28 (526.3) 상승자들은 그들의 예루셈 봉사를 즐기며 다른 집단들의 기법들을 관찰하기를 좋아한다. 이 다양한

순환계들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예루셈 전체에서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열려 있다.

46:5.29 (526.4) 그러한 세계의 활동들은 세 가지 뚜렷한 다양성들 즉: 일, 진보, 수행에 속한다. 다르게 표현하며, 그것들은: 봉사, 연구, 그리고 이완-휴식이다. 혼합 활동들은 사회적 교제와 집단 위안 그리고 신성한 경배로 구성된다. 다양한 집단의 개인성들, 자기 자신의 동료들과는 매우 다른 계층들과 어울리는 일에는 큰 교육적 가치가 있다.

46:5.30 (526.5) 6. 우대거류민단의 순환계들. 우대거류민단의 일곱 순환계들은 거대한 세 구조물들; 예루셈의 천문 관측소, 사타니아의 거대한 예술화랑, 그리고 복귀(復歸) 지도자들의 거대한 회합 장소, 휴식과 유흥에 바쳐진 모론시아 활동 극장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46:5.31 (526.6) 천상의 거장이 스포르나기아를 지도하며, 공공 회합이 이루어지는 각 장소에 풍부하게 널려있는, 창조적 장식물들과 역사적 기념의 무리들을 제공한다. 이 거장들의 작업장들은 이 훌륭한 세계의 비길 데 없는 구조물들 전체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것에 속한다. 다른 우대거류민단은 광대하고 아름다운 본부를

유지한다. 이 건물들 대부분은 전적으로 수정 보석으로 지어져 있다. 모든 고안건축의 세계들에는 수정과 소위 귀중한 금속들이 풍부하다.

^{46:5.32 (527.1)} 7. 최종자의 원형지역들은 중앙에 하나의 독특한 구조물을 갖고 있다. 그리고 비어 있는 동일한 이 성전이 네바돈 전역의 각 체계 본부 세계에서 발견된다. 예루셈에 있는 이 건물은 미가엘의 휘장에 의해 봉해져 있으며,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영의 일곱 번째 단계—영원한 임무—까지는 봉헌되지 않았음.” 가브리엘이 신비로운 이 성전을 봉인하였으며, 미가엘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빛나는 새벽별에 의해 부착된 주권자의 봉인을 뜯을 수 없고 뜯지도 않을 것이다. 비록 너희가 그 신비로움을 꿰뚫어보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너희가 이 고요한 성전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46:5.33 (527.2)} 다른 예루셈 순환계들: 이 거주지 순환계들 이외에, 예루셈에는 수많은 다른 지정된 거주지들이 있다.

제 6 장. 집행-행정 정사각형

46:6.1 (527.3) 이 체계의 집행-행정-관리적 부서들은 거대한 분과별 광장들에 위치해 있는데, 1,000개에 이른다. 각각의 행정-관리적 단위는 각각 10개 하부 집단을 갖는 100개 하부 부서들로 나뉜다. 이 1,000개 광장들은 10개의 큰 부서들로 군(群)을 이루며, 다음과 같은 10개의 행정-관리적 분과들을 구성한다.

46:6.2 (527.4) 1. 물리적 유지 그리고 물질적 개선, 물리적 힘과 에너지의 영토.

46:6.3 (527.5) 2. 중재, 윤리, 그리고 행정-관리적 판결.

46:6.4 (527.6) 3. 행성 그리고 지역 관련사들.

46:6.5 (527.7) 4. 별자리 그리고 우주 관련사들.

46:6.6 (527.8) 5. 교육 그리고 다른 멜기세덱들의 활동들.

46:6.7 (527.9) 6. 행성 그리고 체계 물리적 진보, 사타니아 활동들의 과학적 권역들.

46:6.8 (527.10) 7. 모론시아 관련사들.

46:6.9 (527.11) 8. 순전한 영 활동들 그리고 윤리.

46:6.10 (527.12) 9. 상승자 사명활동.

46:6.11 (527.13) 10 대우주 철학.

46:6.12 (527.14) 이 구조들은 명백하다; 그래서 모든 체계 활동들은 학생 방문자들에게도 보일 수 있다.

제 7 장. 직사각형—스포르나기아

46:7.1 (527.15) 예루셈의 1,000개 직사각형들은 본부 행성의 비교적 낮은 원주민 생명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들의 중앙에는 스포르나기아의 광대한 순환 본부가 있다.

46:7.2 (527.16) 예루셈에서는 너희가 훌륭한 스포르나기아의 농업 업적들에 의해 놀라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그 땅은 심미적 효과와 장식 효과들을 위해 주로 경작된다. 스포르나기아는 본부 세계들의 경치 원예가들이며, 그들은 예루셈의 열린 공간들을 그들이 처리함에 있어서 기원적일 뿐만 아니라 예술적이다. 그들은 그 땅을 경작함에 있어서 동물들과 수많은 기계적 장치들을 활용한다. 그들은 그들의 영역의 힘 대리자들을 활용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이 특별한 세계들에게 제공된 비교적 저급한 동물 창조체들로 이루어진 그들의

비교적 낮은 형제들의 수많은 계층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지능적으로 노련하다. 동물 생명의 이 계층은 진화
세계들로부터 온 상승하는 중도 창조체들에 의해 현재
광범위하게 지도받고 있다.

46:7.3 (528.1) 스포르나기아에게는 조절자가 내주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생존되는 혼이 없지만, 그들은 긴 삶을 사는데,
때로는 40,000년부터 50,000년의 표준 년의 기간에 이른다.
그들의 숫자는 큰 무리를 이루며, 그들은 물질적 봉사가
필요한 우주 개인성의 모든 계층에게 물리적 사명활동을
제공한다.

46:7.4 (528.2) 스포르나기아가 생존되는 혼을 갖지도 않고 혼이
진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개인성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신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개별성을 발전시킨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독특한
창조체들이 활용도와 나이에서 열등하게 될 때, 그들의
창조자들은, 생명운반자들의 협동을 얻어서, 나이 많은
스포츠나기아가 그들의 거주를 그 안에 다시-세우는,
새로운 몸체를 조립한다.

46:7.5 (528.3)

스포르나기아는 네바돈 우주 전체에서 환생에서의 이러한 또는 기타 어떤 종류의 것이라 해도 체험을 겪는 유일한 창조체이다. 그들은 보조 마음-영들 중 처음 다섯 가지에 대해서만 반응 한다; 그들은 경배 그리고 지혜의 영들에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섯-보조 마음이 전체성에 동등하게 되며, 즉 여섯 번째 실체 차원이 되고 그리고 바로 이 요소가 하나의 체험적 정체성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다.

46:7.6 (528.4)

나는 그들에게 비교할만한 동물이 진화 세계에 없기 때문에 이 유용하고도 비범한 창조체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은 진화하는 존재가 아닌데, 생명운반자들에 의해 그들의 현재 형태와 지위로 구체적으로 투사하게 되었다. 그들은 양성(兩性)이며 증대되는 인구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요구될 때 산출한다.

46:7.7 (528.5)

이들 아름답고도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창조체의 본성에 관한, 무언가를 유란시아 마음들에게 최선으로 제시한다면 아마도, 그들이 충실한 말과 애정 깊은 개의 병합된 특색들을 포용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유형의

원숭이를 능가하는 지능을 현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란시아의 물리적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매우 아름답다. 이들 고안건축 세계에 머무는 물질적 그리고 반(半)물질적 체류자들이 그들에게 관심들 가지는 것을 그들은 가장 깊이 감사한다. 그들은 자신들이—물질적 존재들 외에도—모론시아 창조체들, 비교적 낮은 천사 계층들, 중도 창조체들, 그리고 비교적 낮은 계층들의 영 개인성들을 인지하게 만드는 시력을 갖고 있다. 그들은 무한자에 대한 경배를 이해하지 못하고, 영원자에 대한 의미도 또한 파악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주인에 대한 애정을 통해서 바깥으로 드러내는 그들 영역에서의 영적 헌신에 참여한다.

46:7.8 (528.6) 장래의 우주 시대에, 이 신실한 스포르나기아가 그들의 동물적 실존 차원으로부터 벗어나, 진보하는 지적 성장을 그리고 심지어는 영적인 성취를 이루는 훌륭한 진화적 운명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자들도 있다.

제 8 장. 예루셈 삼각형

46:8.1 (528.7) 예루셈의 순전히 지역이고 일상적인 관련사들이 100개 삼각형들로부터 규제를 받는다. 이 단위들은

예루셈의 지역 관리-행정의 주소를 정하는 10개의 신기한 구조물들 주변에 군(群)을 이루고 있다. 그 삼각형들은 체계 본부 역사의 개괄적 묘사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현재 이 순환적 이야기 속에는 2 표준 마일에 해당하는 삭제된 부분이 있다. 이 구역은 별자리 가족으로 사타니아가 다시 받아들여질 때 재생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준비가 미가엘의 명령에 의해 이미 만들어 졌지만, 루시퍼 반란의 관련사에 대한 판결을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이 아직 완결하지 않았다. 사타니아가 최고 반역자들, 곧 빛으로부터 어둠 속으로 떨어진 높은 피조 존재들을 거느리고 있는 한, 사타니아는 놀라시아텍의 충분한 동료관계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46:8.2 (529.1) 사타니아가 별자리 울타리 안에 돌아올 수 있을 때, 고립된 세계들을 거주민이 사는 행성들의 체계 가족으로 다시 받아들임에 대한 고려가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영역들의 영적 교제 안으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 뒤 따를 것이다. 그러나 만일 유란시아가 체계 순환계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너희는 너희 전체 체계가 다른 모든 체계들로부터 그것을 부분적으로 분리하는 놀라시아텍 억류 아래에 놓여 있는 사실 때문에 여전히 당황될 것이다.

46:8.3 (529.2) 그러나 머지않아, 루시퍼와 그의 연관-동료들에 대한 판결이 사타니아 체계를 놀라시아덱 별자리로 회복시킬 것이며, 그 후에, 유란시아 그리고 고립된 다른 구체들은 사타니아 순환계들로 회복될 것이며, 그러한 세계들은 행성 사이 통신과 체계 사이 교제의 특권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46:8.4 (529.3) 반역과 반란에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최극 통치자들은 자비롭고 인내심이 많지만, 고의적으로 조장된 악에 대한 법은 우주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집행된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영원한 소멸이다.

46:8.5 (529.4) [네바돈의 천사장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47 편 일곱 맨션세계

47:0.1 (530.1) 창조자 아들은 유란시아에 있을 때 “아버지의 우주에 있는 많은 거(居)할 곳”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루셈을 돌고 있는 56개 세계들 전체가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과도기 수양에 헌신되어 있지만, 1번 세계의 일곱 위성들은 더욱 특별하게 맨션세계들로서 알려져 있다.

47:0.2 (530.2) 과도기 세계 1번 자체는 상승자 활동들에 매우 배타적으로 헌신되어 있는데, 사타니아에 배정된 최종자 무리단의 본부이다. 이 세계는 현재 100,000개 이상의 최종자 중대들을 위한 본부로서 봉사하고 있으며, 이 집단들 각각에는 1,000명의 영화롭게 된 존재들이 있다.

47:0.3 (530.3) 체계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될 때, 그리고 맨션세계들이 필사자-훈련 정류장들로서 봉사하는 것을 하나씩 멈추게 되면, 그것들은 비교적 나이가 많고 더욱 높게 완전하게 된 이 체계들 안에 누적된 점증하는 최종자 주민에 의해 차지된다.

47:0.4 (530.4) 일곱 맨션세계들은 모론시아 감독자들과 멜기세덱들이 책임을 맡고 있다. 각각의 세계에는 예루셈 통치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한 명의 대리 장관들이 있다. 유버사 화해자들이 맨션세계들 각각에 본부를 유지하는 반면, 인접된 곳은 기술 충고자들의 지역 집합장소이다. 복귀 지도자들과 천상의 거장은 이 세계들 각각에 집단 본부를 유지한다. 스피롱가는 2번 맨션세계부터 이어서 계속 기능하는 반면, 다른 과도기-

수양 행성들과 본부 세계들과 같이, 일곱 개 전체는 표준 창조의 스포르나기아가 풍성하게 제공된다.

제 1 장. 최종자 세계

47:1.1 (530.5) 오직 최종자와 특정한 집단의 구원된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들만이 과도기 1번 세계에 거주하지만, 영 존재들과 과도기 필사자들 그리고 학생 방문자들 전체를 접대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이 모든 세계들에서 기능하는 스포르나기아는 그들이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공손한 영접자이다. 그들은 최종자에 관해 막연한 느낌을 갖고 있지만 그들을 볼 수는 없다. 그들은 너희가 현재의 물리적 상태에서 천사들에게 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들을 간주하는 것이 틀림없다.

47:1.2 (530.6) 최종자 세계가 비록 멋진 물리적 아름다움과 색다른 모론시아 장식으로 된 구체라 할지라도, 활동들의 중심지에 위치한 거대한 영 거주지, 최종자의 성전은, 도움을 받지 않은 물질적 시력 또는 초기 모론시아 시력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에너지 변환자들은 이 실체들 대부분을 상승하는 필사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며,

때로는 이 문화적 구체에서 있는 맨션세계의 수업 집회의
경우에서처럼 그렇게 기능한다.

47:1.3 (531.1) 맨션세계 체험 전체를 통하여 너희는
파라다이스를 달성한 너희의 영화롭게 된 형제의 현존을
어느 면에서 영적으로 알게 되지만, 그들의 본부
거주지에서 그들이 기능하는 것처럼 그들을 실재적으로
아는 것은 때로 매우 신나는 일이다. 너희는 너희가 참된
영 시력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최종자를 자연스럽게 볼 수
없을 것이다.

47:1.4 (531.2) 첫 번째 맨션세계에서 모든 생존자들은 그들의
출생 행성들로부터 부모 위원회의 요구 조건들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현재의 유란시아 부모 위원회는
최근에 도착한 12쌍의 부모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은
사춘기 시대까지 셋 또는 그 이상의 자녀들을 기르는 필사
체험을 가졌다. 이 위원회에서의 봉사는 교대로
이루어지고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한다. 어버이의 체험에
있어서 이 위원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예루셈에 있는 물질아들들의 고향에서 또는 최종자

세계에 있는 보호관찰 보육원 안의 일부 분야에 봉사함으로써 더욱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47:1.5 (531.3) 그러나 아버지의 체험에 상관없이, 보호관찰 보육원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을 가진 맨션세계 부모들에게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론시아 보호관리자들과 그들의 지도와 훈련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는 온갖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 부모들은 일 년에 네 번까지 방문을 위한 그곳으로의 여행이 허락된다. 그리고 맨션세계 부모들이 최종자 세계를 향한 그들의 정기적 순례 여행의 사건들 중에서, 그들의 물질적 자식들을 포옹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모든 상승하는 생애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아름다운 장면들 중의 하나이다. 한쪽 또는 양쪽 부모들이 자녀들보다 먼저 맨션세계를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아주 흔히 한 계절 동안 같은 시대에서 지낸다.

47:1.6 (531.4) 그 어떤 상승하는 필사자도 물질세계 혹은 뒤이어 지는 최종자 세계 또는 예루셈에서 자녀—자기 자신 또는 다른 이의 자녀—들을 기르는 체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버지들은, 어머니들과 똑같이 확실하게, 이 필수 체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녀 양육은 주로 어머니의

일이라고 여기는 것은 유란시아 현대인들의 유감스럽고도 잘못된 인식이다. 자녀들에게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필요하며, 아버지도 어머니만큼 이러한 어버이 체험이 필요하다.

제 2 장. 보호관찰 보육원

47:2.1 (531.5) 사타니아의 유아(乳兒)-접수 학교들은 최종자 세계에 위치해 있는데, 예루셈 과도기-양육 구체들 중 첫 번째이다. 이 유아-접수 학교들은, 우주 기록부에서 개별존재적 지위의 획득 이전(以前)에 공간의 진화 세계에서 죽은 자녀들을 포함하고 있는, 시간의 자녀들을 기르고 훈련하는 일에 헌신되어지는 기관들이다. 그러한 자녀의 부모들 중 어느 한 쪽 이나 둘 모두가 생존되는 일이 생기면, 운명 수호자는 자기와 연관된 케루빔을 아이의 잠재적 정체성의 보호관리자로 세우고, 케루빔에게 모론시아 세계의 보호관찰 보육원들에 있는 맨션세계 선생들의 손에 이 자라나지 못한 혼을 인도하는 책임을 맡긴다.

47:2.2 (531.6) 멜기세덱들의 감독 아래에서, 맨션세계 선생으로서, 최종자의 보호관찰 피보호자를 훈련하기

위해 그러한 확장된 교육 기관들을 유지하고 있는 이는 바로 이 분리된 케루빔들이다. 이들 최종자가 보호하는, 상승하는 필사자의 이들 어린아이들은 번식하는 잠재를 제외하고 죽었을 때의 그들의 바로 그 육체적 상태로 항상 개인성구현된다. 이 깨어남은 부모가 첫 번째 맨션세계에 도착하는 것과 똑같은 시간에 발생한다. 그리고 나서 이 자녀들에게 모든 기회가 주어지는데, 죽음이 그렇게 불시에 그들의 생애를 끝냈던 세계들에서 그들이 선택하였을 지도 모를 비로 그러한 하늘의 길을 선택하도록 모든 기회가 주어진다.

47:2.3 (532.1) 유아 세계에서, 보호관찰 창조체들은 그들이 조절자들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집단을 이루는데, 왜냐하면 조절자들이 시간 세계에서와 똑같이 이 물질적 자녀들에게 내주하기 위해 오기 때문이다. 한 살 또는 그 이하의 나이부터 조절자가 도착하는 나이인 약 다섯 살까지 범위의, 조절자-이전 나이의 자녀들은 5명씩의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다.

47:2.4 (532.2) 생각 조절자들을 가졌었지만 죽기 전에 파라다이스 생애에 관한 선택을 하지 않은 진화하는

세계들의 모든 자녀들 역시 체계의 최종자 세계에서 재(再)개인성구현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조절자들 없이 도착한 어린 자, 그러나 나중에 도덕적 선택이 요구되는 나이에 이른 후 신비 감시자들을 받게 될 그 어린이들이 하는 것처럼 물질 아들과 그들 연관-동료들의 가족 안에서 마찬가지로 성장한다.

47:2.5 (532.3) 최종자 세계에 있는 조절자-내주 자녀들과 청년들 역시, 다섯 명의 가정 안에서 키워지는데, 6살부터 14살까지 범위를 이룬다; 대체로 이 가정들은 6, 8, 10, 12, 그리고 14살인 자녀들로 구성된다. 16살이 지난 후 언제라도, 만일 최종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면, 그들은 첫 번째 맨션으로 옮겨져서 그들의 파라다이스 상승을 시작한다. 어떤 아이들은 이 나이에 이르기 전에 선택하고 상승 구체들로 가지만, 유란시아 표준으로 계산할 때, 16세 이전에는 매우 적은 숫자의 자녀들이 맨션세계들에서 발견된다.

47:2.6 (532.4) 수호 세라핌천사들이 진화하는 행성들에서 필사자들에 영적으로 사명활동하는 것과 바로 그렇게 똑같이 최종자 세계의 보호관찰 보육원에서 이들

젊은이들을 따라다니며, 한편 충성스러운 스포르나기아는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에 사명활동한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최종적인 선택을 하는 시기가 이르기까지 과도기 세계에서 성장한다.

47:2.7 (532.5) 물질적 삶이 그 과정을 달려왔을 때, 만일 상승하는 삶을 위한 그 어떤 선택도 내리지 않았거나, 혹은 시간의 이들 자녀들이 하보나 모험에 반대하여 분명하게 결정하고 있다면, 죽음이 그들의 보호관찰하는 생애를 자동적으로 종결시킨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어떤 판결도 없다; 그러한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는 그 어떤 부활도 없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된다.

47:2.8 (532.6) 그러나 만일 그들이 완전을 이루는 파라다이스 경로를 선택한다면, 그들은 첫 번째 맨션세계로 옮겨질 준비가 즉시 갖추어지며, 그곳에서 그들 중 대부분은 하보나 상승에서 그들의 부모들과 만나는 시기에 맞추어서 도착한다. 하보나를 통과하고 신(神)들에 참여한 이후에는, 필사자로부터 기원된 이들 구원된 혼들은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상승 시민권을 갖게 된다. 필사자 탄생의 세계에서 가지는 가치 있고 본질적인 진화적

체험을 빼앗긴 이들 자녀들은 최종의 무리단에는
모집되지 않는다.

제 3 장. 첫 번째 맨션세계

47:3.1 (532.7) 맨션세계들에서, 부활된 필사자 생존자들은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여 떠났던 바로 그 시점에서 다시
삶을 시작한다. 너희가 유란시아로부터 첫 번째
맨션세계로 가게 되면, 너희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되겠지만, 만일 너희가 시간의 보다 더 정상적이고
진보적인 구체로부터 왔었다면, 너희가 다른 몸체를
소유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너희는 차이점을 거의
느끼지 못할 것이다; 육신의 장막과 피는 탄생되었던
세계에 남겨진다.

47:3.2 (532.8) 첫 번째 맨션세계의 모든 활동들의 가장 중심은
부활 강당, 개인성 회합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성전이다.
거창한 이 구조물은 세라핌천사 운명 수호자들과 생각
조절자들 그리고 부활을 담당하는 천사장들의 중심
집결지에 존재한다. 생명운반자들 역시 죽은 자의 부활에
있어서 이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활약한다.

47:3.3 (533.1) 물질적인 차원으로부터 영적인 차원으로 변환될 때의 필사자-마음 사본과 활동적인 창조체-기억 원형틀들은 분리된 생각 조절자들의 개별적 소유물이다; 영으로 바뀐, 마음과 기억 그리고 창조체 개인성의 이 요소들은 언제까지나 그러한 조절자들의 한 부분이다. 창조체 마음-모형과 정체성의 수동적 잠재는 세라핌천사의 운명 수호자들의 보호에 위탁된 모론시아 혼속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창조체 개인성을 다시 조합하고 잠자는 생존자의 부활을 구성하는 것은 세라핌천사의 모론시아-혼 신탁과 조절자의 영-마음 신탁의 재결합이다.

47:3.4 (533.2) 필사자 기원을 갖는 덧없는 개인성이 그렇게 재조합 되지 않는다면, 생존되지 못하는 필사 창조체의 영 요소들은 한 때 내주 하였던 조절자의 개별 체험 자질에서의 집대성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서 언제까지나 남을 것이다.

47:3.5 (533.3) 새로운 생명의 성전으로부터 뺏어나간 일곱 개의 방사형(放射形) 부속건물들, 필사 종족들의 부활 강당들이 있다. 이 구조물들 각각은 시간의 일곱 종족들 중 하나의

집회에 헌신되어 있다. 원형의 학습 회합 강당들과 경계를 이루는 이 일곱 부속건물들 각각에는 100,000개의 개인 부활실이 있는데, 그것들은 백만 명에 달하는 개별존재들을 위한 깨어나는 방으로 사용된다. 이 강당들은 정상적인 아담의-세계-이후의 혼혈 종족들이 모이는, 개인성 회의실들로 둘러싸여 있다. 특별부활 또는 섭리시대 부활과 관련되어 개별 시간 세계들에서 채택될 수 있는 기법과는 상관없이, 실재적이고 완벽한 개인성의 실제적이고 의식적인 재(再)조합이 1번 맨션계의 부활 강당들에서 발생된다. 영원에 두루, 너희는 이 부활의 아침을 너희가 처음 바라본 것에 대한 심원한 기억 속의 감명을 계속 되살리게 될 것이다.

47:3.6 (533.4) 너희는 부활 강당들로부터 멜기세덱 구역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너희는 영원한 거주지를 배정 받는다. 그 다음에 너희는 10일간의 개인적 해방을 갖는다. 너희는 자신의 새로운 집 바로 근처를 자유롭게 돌아볼 수 있으며 바로 시작하게 될 프로그램에 스스로를 익숙하게 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너희는 등록 상담에 대한 너희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너희보다 먼저 이 세계들에게로 온 너희가 사랑하던 사람들과 다른

지구(地球) 친구들을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10일 동안의 자유시간이 끝날 때 너희는 파라다이스 여행에 있어서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맨션세계들은 단순히 붙잡아 두는 행성일 뿐만 아니라 실재적인 훈련 구체기 때문이다.

47:3.7 (533.5) 1번 맨션세계에서 (혹은 진보된 지위의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너희는 죽음에 의해 중지되었던 바로 그 차원에서 너희의 지적 훈련과 영적 발달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행성에서의 죽음 또는 변환과 맨션세계에서의 부활 사이에서, 필사자 사람은 생존의 사실을 체험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혀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이곳에서 떠난 바로 그 수준에서 다시 시작한다.

47:3.8 (533.6) 1번 맨션세계에서의 거의 모든 체험은 부족분 사명활동과 관계된다. 억류하는 이 첫 번째 구체에 도착하는 생존자들은 너무나 많은 그리고 다양한 필사자 체험의 창조체 성격 그리고 결함의 결점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영역의 주요 활동들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물질적 진화 세계에서 육신 속에서의 삶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의 이 습성들을 바로잡고 치료하는 일에 부과된다.

47:3.9 (534.1) 1번 맨션세계에 머무는 것은 최소한 정상적인 진화 세계의 아담의-이후 섭리시대의 지위까지 필사자 생존자들을 발달시키기 위해 계획되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맨션세계 학생들은 그러한 상태의 단순한 인간 발달보다 훨씬 앞서 있다.

47:3.10 (534.2) 만약에 너희가 1번 맨션세계에 머물러 있게 되지 않는다면, 10일이 지난 후에 너희는 옮겨지기 위한 수면 속으로 들어가고 2번 세계로 진행하며, 그 후로 10일마다 너희는 너희가 배정될 세계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이다.

47:3.11 (534.3) 1번 맨션세계 관리-행정의 일곱 주요 순환계들 중앙은 모론시아 동행자들, 상승하는 필사자들에게 배정된 개인 안내자들의 성전이 차지하고 있다. 이 동행자들은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자손들이며, 사타니아의 맨션계 세계들에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그들이 존재한다. 집단적으로 배정된 그들을 제외하고, 너희는 통역자와 번역자들과 건물 보호관리자들 그리고 여행 감독자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동행자들 전체는 모론시아 육체 속에 있는 마음 그리고

영으로 된 너희의 개인성 요소들을 발전시키는 일을
해야만 하는 자들에게 가장 협조적이다.

47:3.12 (534.4) 너희가 첫 번째 맨션세계에서 출발할 때, 한 명의
모론시아 동행자가 1,000명의 상승하는 필사자들 각
무리에게 배정되지만, 너희는 일곱 맨션 구체들을
통과하여 진행할 때 더 많은 숫자와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아름답고 다재다능한 존재들은 동행할 수 있는 연관-
동료들이며 매력 있는 안내자들이다. 그들은 그 위성
세계들을 포함하여 어떤 과도기-수양 구체에 대해서든지
개별존재들 또는 선택된 집단들에게 자유롭게 동행할 수
있다. 그들은 상승하는 모든 필사자들의 여행
안내자들이며 여가 시간의 동반자들이다. 그들은
예루셈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생존자 집단과 자주
동행하는데, 너희가 거기에 있는 중 어느 날, 너희는 체계
수도의 등록 구역으로 갈 수 있고 일곱 맨션세계들
전체로부터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거주 지역과 체계 본부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하며 여행하기 때문이다.

제 4 장. 두 번째 맨션세계

47:4.1 (534.5) 너희가 맨션계 삶에 보다 더 충만하게 안내되는 것은 바로 이 구체에서이다. 모론시아 삶의 집단화가 형성되기 시작 한다; 일하는 집단들과 사회 계층들이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공동체들이 공식적인 역할을 하며, 진보하는 필사자들은 새로운 사회 계층들과 정부 부서들을 발족시킨다.

47:4.2 (534.6) 영-융합 생존자들은 조절자-융합 상승 필사자들과 공동으로 맨션세계들을 차지한다. 천상의 생명의 다양한 계층들이 서로 다른 반면, 그들은 모두 친근하고 형제우애를 나눈다. 상승하는 과정의 모든 세계들에서 너희는 인간적 편협성과 인정 없는 특권계급 제도의 차별대우에 견줄 수 있는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47:4.3 (534.7) 너희가 맨션세계들을 하나씩 올라감에 따라, 그것들은 진보하는 생존자들의 모론시아 활동들로 더욱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앞으로 나아갈 때, 너희는 맨션세계들에게 덧붙여진 예루셈 특성들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될 것이다. 유리 바다는 두 번째 맨션계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47:4.4 (534.8)

한 맨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진보하는 각 단계마다 새롭게 발전되고 알맞게 조절된 모론시아 육체가 획득된다. 너희는 세라핌천사 운송자와 함께 잠을 자게 되고 부활 강당에서 새로운 그러나 발전되지 않은 육체와 함께 깨어나는데, 맨션세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통과 수면 동안 생각 조절자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너희가 1번 맨션세계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 매우 흡사하다. 너희가 일단 진화 세계들로부터 첫 맨션세계로 옮겨진 후에는 너희 개인성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47:4.5 (535.1)

너희 조절자 기억은 너희가 모론시아 삶으로 상승할 때의 상태로 충만하게 남아 있다. 순전히 동물적이고 전적으로 물질적이었던 그러한 정신적 관계적-연합은 물질적인 뇌와 함께 자연적으로 쇠퇴되었지만, 보람이 있었고 생존 가치가 있었던 너희 정신적 삶의 모든 것들은 조절자에 의해 복사되었으며 상승 생애에 두루 모든 과정에서 개인적인 기억의 한 부분으로서 계속 유지된다. 너희가 한 맨션세계로부터 다른 곳으로 그리고 우주의 한 부분으로부터 다른

곳으로—심지어는 파라다이스로—전진할 때 너희는 보람 있는 모든 체험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47:4.6 (535.2) 너희가 모론시아 육체들을 갖더라도, 이 일곱 세계들 모두에서 너희는 계속 먹고 마시고 쉴 것이다. 너희는 모론시아 계층의 음식, 물질세계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살아있는 에너지 계를 섭취한다. 음식과 물은 모두 모론시아 육체 안에서 충만하게 활용된다; 거기에는 남아 있는 찌꺼기가 없다.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라: 1번 맨션계는 매우 물질적인 구체인데, 모론시아 체제의 초기 출발을 보여준다. 너희는 여전히 인간에 가깝고 필사자 삶의 제한된 관점으로부터 그리 멀리 옮겨지지 않았지만, 각 세계는 분명한 진보를 보여준다. 구체를 옮길 때마다 너희는 점점 덜 물질적이 되고 더욱 지적이 되며 약간 더 영적으로 변한다. 영적인 진보는 이 일곱 진보 세계들 중 마지막 세 곳에서 가장 크게 이루어진다.

47:4.7 (535.3) 생물학적 결핍은 첫 번째 맨션세계에서 대부분 보상되어지는 것이다. 성(性) 생활, 가족 관계적-연합 그리고 아버이의 기능과 관련된 행성 체험에서의 결점은 그곳에서 교정되든지 아니면 미래에 있을 예루셈에 있는

물질아들 가족 가운데에서의 시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투사되어진다.

47:4.8 (535.4) 2번 맨션계는 지적 모순의 모든 위상들을 제거하는 일에 그리고 정신적 부조화의 모든 다양성을 치료하는 일에 더욱 특별하게 준비되어 있다. 첫 번째 맨션세계에서 시작되었던, 모론시아 모타의 의의(意義)를 숙달하려는 노력이 여기에서 더욱 진지하게 계속된다. 2번 맨션계에서의 발달은 이상적인 진화 세계에서의 치안법관 아들-이후의 지적 지위와 비교된다.

제 5 장. 세 번째 맨션세계

47:5.1 (535.5) 세 번째 맨션계는 맨션세계 교사들의 본부이다. 비록 그들이 일곱 맨션 구체들 전체에서 기능하지만, 그들은 3번 세계의 학교 순환계들의 중심에 그들의 집단 본부를 두고 있다. 맨션과 그보다 높은 모론시아 세계들에는 수백만 명의 이들 강사들이 있다. 진보되고 영화롭게 된 이 케루빔들은 맨션세계들로부터 지역우주 상승자 훈련의 마지막 구체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과정에서 모론시아 선생들로서 봉사한다. 그들은 작별인사를 나누는 때가 가까이 올 때 너희에게 애정 어린

고별인사를 하는 마지막 존재들 중에 속할 것인데, 그때 너희는 너희가 기원된 우주에게 마지막 인사—적어도 몇 세기 동안—를 하며, 그때 너희는 초우주의 하위 구역에 해당하는 접수 세계들로 옮겨지기 위해 세라핌천사 안으로 들어간다.

47:5.2 (535.6) 첫 번째 맨션세계에 머무를 때, 너희는 최종자의 본부이며 개발되지 않는 진화적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체계 시험 유아원인, 과도기 세계들 중 첫 번째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된다. 너희가 2번 맨션계에 도착하였을 때, 너희는 2번 과도기 세계에 주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들이는데, 그곳에는 사타니아 전체를 위한 모론시아 감독자 본부와 다양한 모론시아 계층들을 위한 훈련 학교들이 있다. 너희가 3번 맨션세계에 도착하였을 때, 너희는 세 번째 과도기 구체, 그들의 다양한 체계 훈련 학교들의 고향과 천사 계층들의 본부를 방문할 수 있는 허락을 즉시 부여받는다. 이 세계로부터 예루셈을 방문하는 일들은 점점 더 유익하며, 진보하는 필사자들에게 항상-증가되는 흥미를 준다.

47:5.3 (536.1) 세 번째 맨션계는 필사자 출생 세계들에서 육신으로부터 이탈되기 전에 이 훈련 순환계들에게 대등하도록 만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커다란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성취의 세계이다. 이 구체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교육 작업이 시작된다. 처음 두 개의 맨션세계들에서의 훈련은 육신 안에서의 삶의 체험을 보충해야만 하는 결핍 특징—소극적인—에 대부분이 해당된다. 이 세 번째 맨션세계에서 생존자들은 그들의 진보적 모론시아 훈련을 실제적으로 시작한다. 이 훈련의 주요 목적은 모론시아 모타와 인간 이치의 상호관계, 모론시아 모타와 필사자 철학의 조화-협동에 대한 납득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생존되는 필사자들은 이 때 참된 형이상학으로 들어가는 실천적 통찰력을 얻는다. 이것이 우주적 의미들과 우주 상호관계들의 지능적 이해에 대한 실제적 해설이다. 세 번째 맨션세계에서의 수양은 거주민이 사는 정상적인 행성에서의 아들 증여-이후 시대의 본성을 띠고 있다.

제 6 장. 네 번째 맨션세계

47:6.1 (536.2) 너희가 네 번째 맨션세계에 도착하였을 때, 너희는 이미 모론시아 생애에 잘 들어갔으며; 너희는 최초의

물질적 실존으로부터 먼 거리를 진보해 왔다. 이제 너희는 4번 과도기 세계에 방문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으며, 거기에서 너희는 찬란한 저녁별을 포함하여 특급천사들의 본부 그리고 훈련 학교들에 익숙하게 된다. 네 번째 과도기 세계의 이 특급천사들의 선한 직책을 통하여 모론시아 방문자들은 예루셈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동안 하느님의 아들들의 다양한 계층들에게 매우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체계 본부의 새로운 구역들은 진보하는 필사자들이 본부 세계에 대한 이 반복된 방문을 할 때 그들에게 점점 더 열려지게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장관들이 이 상승자들의 확대하는 마음들에게 점진적으로 펼쳐진다.

47:6.2 (536.3) 네 번째 맨션계에서 개별 상승자는 모론시아 삶의 집단 작업과 학급 기능에 있어서 자기 위치를 점점 더 적절하게 발견한다. 상승자들은 지역우주 수양과 진보의 방송 그리고 다른 위상들에 대해 증가된 깊은 감상을 여기에서 개발한다.

47:6.3 (536.4)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모론시아 창조체들의 참된 사회적 삶에 대한 요구사항들과 환희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일은 실제로 4번 세계에서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있다. 그리고 개인적 웅대함도 아니고 자아-탐구에서의 정복에도 기초를 두지 않는,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진화적 창조체들에게 정말로 새로운 체험이다. 하나의 새로운 사회적 계층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간의 깊이 알아차리는 납득하는 동정심과 서로간의 봉사하는 사심-없는 사랑 그리고 공통의 그리고 최극의 운명—경배해야 할 그리고 신성한 완전의 파라다이스 목표—의 실현에 대한 압도적 동기이다. 상승자들은 모두 하느님-알기, 하느님-게시, 하느님-추구, 그리고 하느님-발견에서의 자아-의식을 갖게 된다.

47:6.4 (536.5) 이 네 번째 세계의 지적 그리고 사회적 수양은 정상적인 진화의 행성들에서의 교사 아들-이후 시대의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삶과 비교된다. 영적 지위는 그러한 필사자 섭리시대보다 훨씬 앞선다.

제 7 장. 다섯 번째 맨션세계

47:7.1 (537.1) 다섯 번째 맨션세계로 옮기는 것은 모론시아 진보자의 삶에 있어서 앞을 향한 거대한 한 걸음에 상당한다. 이 세계에서 체험은 예루셈 삶을 실제적으로

맛보는 것이 된다. 여기에서 너희는 충성스러운 진화 세계들의 높은 운명을 실현하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자연적인 행성 발달 동안 이 단계를 향해 정상적으로 진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맨션세계의 수양은 정상적인 진화 진보의 행성들에서 빛과 생명의 초기 시대의 그것과 일반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너희는, 그것이 왜 그렇게 배열됨으로써 이 진보된 진화 세계들에서 한 때 거주하였던 높게 수양되고 진보된 유형의 존재들이 맨션 구체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 심지어는 전체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으로부터 제외되는지를 납득할 수 있다.

47:7.2 (537.2) 네 번째 맨션세계를 떠나기 전에 지역우주 언어를 숙달함으로써, 너희는 이제 거주권을 갖고 예루셈에 도착하기 전에 두 언어들에 있어서 능숙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유버사의 방언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 상승하는 모든 필사자들은 체계 본부로부터 하보나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한다. 그 뒤에는 단지 초우주 어휘를 커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파라다이스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추가로 커지는 것이 요구된다.

47:7.3 (537.3) 5번 맨션계에 도착하면, 순례자들은 대응되는 숫자의 과도기 세계, 아들들의 본부를 방문할 수 있는 허락을 받는다. 여기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는 신성한 아들관계의 다양한 집단들과 개인적으로 친숙하게 된다. 그는 이미 이 뛰어난 존재들에 대해 들은바 있으며 예루셈에서 이미 만났지만, 이제 그는 그들을 실제로 알게 된다.

47:7.4 (537.4) 다섯 번째 맨션계에서 너희는 별자리 연구 세계들에 대해 배우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너희는 그 다음의 별자리 체류를 하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기 시작하는 강사들 중 첫 번째를 만난다. 준비의 대부분은 6번과 7번 세계에서 계속되는 반면, 완결하는 접촉이 예루셈에 있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구역에서 제공된다.

47:7.5 (537.5) 조화우주 의식의 실제 탄생은 5번 맨션계에서 발생된다. 너희는 우주를 마음에 두게 된다. 이것은 정말로 지평이 확대되는 시기이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확대하는 마음에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고 어떤 엄청나고 훌륭한, 어떤 숭고하고 신성한 운명이 진보적인 파라다이스 상승을 완성한 모든 존재들을 기다리는데,

그것은 그토록 힘들게 그러나 그토록 기쁘고 경사스럽게 시작되었다. 이 지점에 가까워지면 평균적인 필사자 상승자는 하보나 상승을 향한 진실한 체험적 열정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연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심-없는 봉사는 자연스러워지며, 경배는 자연적인 것이 된다. 참된 모론시아 성격이 싹트며; 참된 모론시아 창조체가 계속 진화한다.

제 8 장. 여섯 번째 맨션세계

47:8.1 (537.6) 이 구체에 머무는 존재들은 6번 과도기 세계를 방문하도록 허락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이 천상의 존재들 대부분을 눈으로 볼 수는 없을지라도 초우주의 높은 영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운다. 또한 여기에서 그들은 지역우주의 모론시아 훈련으로부터 졸업한 직후에 따라오는 예기된 영 생애에 있어서의 그들의 첫 번째 수업을 받아들인다.

47:8.2 (537.7) 체계 주권자의 보좌관이 이 세계에 자주 방문하며, 우주 관리-행정의 기법에 있어서 최초의 교육이 여기에서 시작된다. 전체 우주의 관련사를 포함하는 첫 번째 학습이 이제 시작된다.

47:8.3 (538.1) 이것은 상승하는 필사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찬란한 시대이며 인간 마음과 신성한 조절자의 완전한 융합을 대개 목격한다. 잠재의 면에서 보면, 이 융합은 그 전에 발생되었을 수도 있지만, 실재적으로 활동하는 정체성은 다섯 번째 맨션세계 그리고 심지어는 여섯 번째에서 머무는 시기까지 성취되지 않는 경우가 여러 번 있다.

47:8.4 (538.2) 진화하는 불멸의 혼이 영원하고 신성한 조절자와 연합하는 일은 부활된 생존자들을 위해 감독하는 특급천사들을 호출하는 그리고 제 3일에 그들이 심판을 받으러 나가게 하는 기록하는 천사장을 호출하는 세라핌천사에 의해 신호를 받으며; 그 다음에는, 그러한 생존자의 모론시아 연관-동료들 앞에서 확증하는 이 메신저들은 이렇게 이야기 한다: "이는 내가 매우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간단한 이 의식이 상승하는 필사자로 하여금 파라다이스 봉사의 영원한 생애에 들어가게 만든다.

47:8.5 (538.3) 조절자 융합이 확정되는 즉시로 새로운 모론시아 존재는 그의 새로운 이름으로서 처음으로 그의

동료들에게 소개되며, 그 자신과 교제하는, 그리고 하보나에 이르는 임의의 경로들 중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그리고 파라다이스 성취의 서로 다른 기법을 선택하는 모든 일상적 활동들로부터 떠나 40일간의 영적 은거를 부여받는다.

47:8.6 (538.4) 그러나 찬란한 이 존재들은 여전히 다소 물질적이다; 그들은 참된 영들이 되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은 초(超)필사자에 더 가까운데, 영적으로 말하자면, 아직도 천사들보다 약간 낮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놀라운 창조체들이 되어가고 있다.

47:8.7 (538.5) 6번 세계에 머무는 동안 맨션세계 학생들은 빛과 생명의 첫 단계를 넘어서 정상적으로 진보된 진화 세계들의 특징을 이루는 고양된 발전과 비교될 수 있다. 이 맨션계에 있는 공동체의 조직은 높은 조직이다. 이 세계들을 하나씩 상승하면서 필사자 본성의 그림자는 점점 더 줄어든다. 너희가 행성의 동물적 기원의 거친 흔적으로부터 떠남에 따라 점점 더 흠모를 받을 존재가 된다. “거대한 시련을 통과하여 다가오는 것”은 영화롭게

된 필사자들로 하여금 매우 친절하고 납득하고, 매우 동정심이 많고 인내하도록 만드는데 기여한다.

제 9 장. 일곱 번째 맨션세계

47:9.1 (538.6) 이 구체에서의 체험은 필사자-이후의 생애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성취이다. 너희가 여기에 머무는 동안 너희는 많은 선생들의 지침을 받아들이는데, 그들 모두는 너희를 예루셈에 거주하도록 준비하는 임무 속에서 협동하게 될 것이다. 고립되고 뒤진 세계들로부터 오는 필사자들과 더욱 진보되고 깨우친 구체들로부터 생존된 그들 사이의 모든 식별 가능한 차이점들이 일곱 번째 맨션세계에 머무는 동안 실질적으로 없어진다. 여기에서 너희는 불행한 유전과 유해한 환경 그리고 비(非)영적인 행성 경향들의 모든 남아 있는 부분들이 제거될 것이다. “짐승의 흔적”의 마지막 남은 부분들이 여기에서 뿌리째 뽑힌다.

47:9.2 (538.7) 7번 맨션계에 머무는 동안, 7번 과도기 세계, 우주 아버지의 세계를 방문할 수 있는 허락을 받는다. 여기에서 너희는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에 대한 새롭고도 더욱 영적인 경배, 너희의 긴 상승하는 생애들에 두루 점점 더

너희가 추구하게 될 습관을 시작한다. 너희는 과도기 문화의 이 세계에서 아버지의 성전을 발견하지만, 너희가 아버지를 보지는 못한다.

47:9.3 (538.8) 이제는 예루셈을 향해 졸업하기 위한 학습들이 향상되기 시작한다. 너희는 이 세계에서 다음 세계로 개별적으로 갔지만, 이제 너희는 집단을 이루어 예루셈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들 속에서, 상승자는 자신의 지구상에서 또는 맨션계 작업 집단의 뒤쳐진 일원으로 하여금 자기를 따라올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일곱 번째 맨션세계에 머물기로 선택할 수 있다.

47:9.4 (539.1) 거주 지위를 가지고 예루셈을 향해 출발하는 너희를 보기 위해 일곱 번째 맨션계의 사람들이 유리 바다에 모인다. 너희가 예루셈을 수백 수천 번 동안 방문할 수 있지만, 항상 손님으로 그렇게 했다; 상승하는 필사자들로서 맨션계 생애 전체에 영원한 작별을 알리는 동료들의 한 무리와 일행을 이루어, 체계 수도를 향해 나아간 적이, 너희에게 결코 없었다. 너희는 예루셈

시민으로서 본부 세계의 접수하는 뜰에서 곧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47:9.5 (539.2) 너희는 일곱 개의 비(非)물질화 구체들을 통한 너희의 진보를 크게 즐기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실제로 불멸화 시키는 구체들이다. 너희는 첫 번째 맨션세계에서는 거의 인간에 가까운데, 물질적인 몸체만 제거한 필사 존재, 모론시아 형태—육신과 피로 된 필사자 집이 아닌 모론시아 세계의 물질적 몸체—안에 거주하는 인간 마음과 같다. 너희는 조절자 융합이 이루어지는 때에 필사자 상태에서부터 불멸의 지위로 옮겨지며, 그때 너희는 예루셈 생애를 완결하고 충만하게-성장한 모론시아인이 될 것이다.

제 10 장. 예루셈 시민권

47:10.1 (539.3) 새로운 등급의 맨션세계 졸업장을 받는 것은 환영 위원회로서 모이게 하는 예루셈 전체에 대한 신호이다. 행성에서의 종족으로 달려왔으며 맨션세계 진보를 완결한 저들, 진화적 기원을 갖는 이들 승리한 상승자들의 도착을 스포르나기아마저도 즐긴다. 오직 물리통제자들과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만이 이 기쁨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

47:10.2 (539.4) 계시자 요한은 일곱 번째 모론시아 세계로부터 그들의 첫 번째 하늘, 예루셈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한 무리의 도착 광경을 보았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리고 내가 보니, 마치 불과 석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었고; 그들의 몸 안에 기원적으로 있었던 짐승을 이기고, 그리고 맨션세계들에 두루 끈질기게 남아있었던 형상을 누르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표시와 흔적을 눌러 승리를 쟁취한 그들이, 유리 바다에 서서, 하느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필사자 공포와 죽음에서의 해방에 대한 노래를 부르더라." (완전하게 된 우주 통신이 이들 모든 세계에 있게 된다; 그러한 통신을 너희가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은 미숙한 모론시아 감각 기능구조를 우주 통신 청취에 직접 맞추지 못하는 무력함을 보상하는 모론시아 고안품, "하느님의 거문고"를 갖고 다님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47:10.3 (539.5) 바울 역시 예루셈에서 완전하게 되는 필사자들의 상승자-시민 무리단을 보았었는데,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무리의 천사들에게, 미가엘의 광대한 집회에, 그리고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의로운 사람들의 영에게 왔도다.”

47:10.4 (539.6) 필사자들이 체계 본부에서 거주지를 갖게 된 후에, 글자 그대로 부활은 더 이상 체험되지 않는다. 맨션세계 생애로부터 떠날 때 너희에게 수여된 모론시아 형체는 지역우주 체험의 끝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보게 되는 것과 같다. 때때로 변화들이 이루어지지만, 너희가 상승하는 수양과 영 훈련의 초우주 세계들을 향해 옮겨지도록 준비된 첫-단계 영들로서 너희가 떠오를 때 너희가 그것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까지 동일한 이 형체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다.

47:10.5 (540.1) 전체 맨션계 생애를 통과한 그 필사자들은 일곱 번에 걸쳐서 조절 수면과 부활의 깨어남을 체험한다. 그러나 마지막 부활 강당, 최종적인 깨어남의 방은 일곱 번째 맨션세계에 남겨졌다. 형태-변화는 더 이상 의식의 상실이나 또는 개인적 기억의 연속성에의 단절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47:10.6 (540.2) 진화 세계들에서 시작되었고 육신 속에 임시로 살았던—신비 관찰자들이 내주되었던 그리고 진리의 영이 부여졌던—필사자 개인성은, 그러한 예루셈 시민에게 에덴시아에 대한 입국허가가 주어지기 전에는 그리고 네바돈의 모론시아 무리단의 참된 성원—조절자 관계적-연합의 불멸의 생존자, 파라다이스 상승자, 모론시아 지위의 개인성, 그리고 지고자의 참된 자녀—으로 선포되기 전에는 충만하게 동원되고 실현되고 통합되지 않는다.

47:10.7 (540.3) 필사자의 죽음은 육신 속에서의 물질적 삶으로부터 탈출하는 한 기법이다; 교정하는 훈련과 교양 교육의 일곱 세계들을 통한 점진적 삶의 맨션계 체험은, 영원의 관문을 성취하도록 운명되어진 시간에서의 상승자들의 더욱 높은 영 성취와 그리고 진화적 물질 실존 사이에 끼어 있는 과도기 삶, 모론시아 생애에 대한 안내를 필사자 생존자들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47:10.8 (540.4) [찬란한 저녁별에 의해 후원되었음]

제 48 편 모론시아 일생

48:0.1 (541.1) 하느님들은 총체적 동물 본성의 창조체를 어떤 창조적 마술의 신비로운 행위로 완전하게 된 영으로 변환시킬 수—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며—없다. 창조자들이 완전한 존재들을 만들고자 할 때, 그들은 직접적이고 기원적인 창조에 의해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동물로부터 기원된 물질적인 창조체들을 단 한 번의 단계를 거쳐 완전한 존재로 바꾸는 일을 결코 하지 않는다.

48:0.2 (541.2) 모론시아 삶은, 지역우주 생애의 다양한 단계들에 퍼져있으며, 물질적 필사자들이 영 세계의 입구에 도달에 유일하게 가능한 접근 방법이다. 무슨 마술이 물질적인 육체의 자연적인 괴멸인 죽음으로 그러한 단순한 한 단계를 통해 즉시 필사이며 물질적인 마음을 불멸의 그리고 완전한 영으로 변환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러한 믿음들은 무식한 미신들 그리고 재미있는 우화들이다.

48:0.3 (541.3) 이 모론시아 과도기는 필사자 지위와 그 이후의 생존되는 인간 존재들의 영 지위 사이에 항상 개입한다. 우주 진보에서의 이 중간 상태는 다양한 지역 창조체들에서 현저하게 다르지만,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는 모두가 매우 비슷하다. 네바돈 안에 있는 맨션과

그보다 높은 모론시아 세계들의 배치는 오르본톤의 이 부분에 있는 모론시아 과도기 체제 중에서 매우 전형적인 것이다.

제 1 장. 모론시아 물질

48:1.1 (541.4) 모론시아 영역들은 창조체 실존의 물질적 그리고 영적 차원 중간에 있는 지역우주 연락 구체들이다. 이 모론시아 삶은 행성영주의 초기 시대부터 유란시아에 알려져 왔다. 이 과도기 상태가 때때로 필사자들에게 가르쳐져 왔으며, 개념이 왜곡된 형태로 지금-현재의 종교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48:1.2 (541.5) 모론시아 구체들은 지역우주의 진보 세계들을 통한 필사자 상승의 과도기 위상들이다. 지역체계의 최종자의 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일곱 세계들만이 맨션세계들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56개의 전체 체계 과도기 거주지들은, 통상적으로 보다 높은 구체들이 별자리들과 우주 본부를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이, 모론시아 세계들이라고 불린다. 이 창조세계들은 물리적 아름다움과 지역우주 본부 구체들의 모론시아 장관을 띠고 있다.

48:1.3 (541.6) 이들 세계들 전체는 고안건축 구체들이며, 그것들은 진화 행성들의 꼭 두 배의 원소 숫자를 가지고 있다. 주문에 의해 만들어진 그러한 세계들은 100개의 물리적 요소들을 포함하여 중금속들과 수정체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론시아 물질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에너지 유기조직인 정확히 100개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 주(主)물리통제자들과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은 물질의 1차 단위들의 순환주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에너지의 이 관계적-연합들을 변환시켜 이 새로운 물질을 창조할 수 있다.

48:1.4 (542.1) 지역체계들에서의 초기 모론시아 삶은 너희의 현재 물질세계에서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며, 별자리의 연구 세계들에서는 덜 물리적이고 더욱 참된 모론시아적으로 바뀐다. 그리고 너희가 구원자별 구체들로 진보함에 따라, 너희는 점점 더 영적인 차원들을 달성한다.

48:1.5 (542.2)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은 물질적 에너지와 영적 에너지의 연합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서 통제하는 영의 초(超)부담(負擔)을 잘 받아들이는 물질화의 모론시아 형태를 조직한다. 너희가 네바돈의 모론시아 삶을 통과할

때, 끈기 있고 능숙한 이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이 570가지 모론시아 몸체들을 너희에게 연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그 각각은 너희의 진보적 변환의 한 위상이다. 너희가 물질적 세계들을 떠날 때부터 너희가 구원자별에서 첫-단계 영으로 구성될 때까지, 너희는 정확하게 570번의 독립적인 그리고 상승하는 모론시아 변화들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것들 중 8번은 체계에서, 71번은 별자리에서, 그리고 491번은 구원자별의 구체들에 머무는 동안 발생한다.

48:1.6 (542.3) 필사 육신의 기간에 신성한 영이 너희 속에 내주하며, 거의 분리된 존재—실체 안에서 우주 아버지의 증여된 영이 필사자에게 침투된 것이다. 그러나 모론시아 삶에서는 영이 너희 개인성의 실제적인 한 부분이 될 것이며, 너희가 570번에 걸친 진보적 변환들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갈 때, 너희는 창조체 삶의 물질적인 신분으로부터 영적인 신분으로 상승한다.

48:1.7 (542.4) 바울은 모론시아 세계들의 실존에 대해 그리고 모론시아 물질들의 실체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기록하기를 “그들은 하늘에서 더 나은 그리고 더

영속하는 물질을 갖는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론시아 물질들은 “지으신 이와 만드신 이가 하느님인, 그러한 기초를 가진 도시”안에 있는, 실제적이고 말 그대로이다. 그리고 경이로운 이들 구체 각각은 “더욱 좋은 나라, 그것이 즉, 천상의 것”이다.

제 2 장. 모론시아 힘 감독자

48:2.1 (542.5) 독특한 이 존재들은 영적 그리고 물리적인 또는 반(半) 물질적인 에너지의 실용적 조합에 해당하는 그 활동들에 대한 감독에 전적으로 관여한다. 그들은 모론시아 진보의 사명활동에 전적으로 헌신한다. 그들은 변환기 체험동안 필사자에게 사명활동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보하는 모론시아 창조체들을 위한 변환 환경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을 더 봉사한다. 그들은 과도기 세계들의 모론시아 위상들을 지탱하고 활력을 주는 모론시아 힘의 통로들이다.

48:2.2 (542.6)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은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자손들이다. 그들은 다양한 지역적 창조계들에서 본질적으로는 약간 다름에도 불구하고 설계에서 거의

표준이다. 그들은 그들의 특정 기능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들의 의무를 시작하기 전에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다.

48:2.3 (542.7) 첫 번째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의 창조는 한 지역우주에서 첫 번째 맨션세계들 중 어떤 하나의 세계에서 첫 번째 필사자 생존자가 도착함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들은 1,000개의 집단으로 창조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48:2.4 (542.8) 1. 순환회로 규제자 400

48:2.5 (542.9) 2. 체계 조화-협동자200

48:2.6 (542.10) 3. 행성 보호관리자100

48:2.7 (543.1) 4. 병합된 통제자100

48:2.8 (543.2) 5. 연락 안정자100

48:2.9 (543.3) 6. 선택 분류자50

48:2.10 (543.4) 7. 연관-동료 등록자50

48:2.11 (543.5) 힘 감독자들은 항상 그들의 태어난 우주에서 봉사한다. 그들은 우주 아들과 우주 영의 공동 영 활동에

의해 배타적으로 지도를 받지만 다른 면으로는 전적으로 자아-관리 집단이다. 그들은 지역체계들의 첫 번째 맨션세계들 각각에 본부를 유지하며, 그곳에서 그들은 물리통제자들과 세라핌천사들 둘 모두와 긴밀하게 관계적-연합되어 일하지만 에너지 현시활동과 영 적용에 관해서는 그들 자신만의 세계에서 기능한다.

48:2.12 (543.6) 또한 그들은 때로 진화 세계들에서 임시 임무의 사명활동자들로써 초(超)물질적 현상들과 관련되어 일한다. 그러나 그들은 거주민이 사는 행성들에서 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은 초우주의 보다 높은 훈련 세계들에서 활동하지도 않으며, 지역우주에서 모론시아 진보의 과도기 체제에 주로 헌신되어 있다.

48:2.13 (543.7) 1. 순환회로 규제자들. 이들은 물리적 그리고 영적 에너지를 조화-협동시키는 독특한 존재들이고 모론시아 구체들의 분리된 통로들로 그 흐름을 제어하며, 이 순환회로들은 전적으로 행성적이며 하나의 세계에 제한된다. 모론시아 순환회로들은 과도기 세계에 있는 물리적 그리고 영적 순환회로 둘 모두와 뚜렷하게 다르고,

그것들에 보충적이며, 심지어 사타니아에서의 맨션세계들과 같은 체계에 활력을 주는 데에도 이 규제자들이 수백만 명 필요하다.

48:2.14 (543.8) 순환회로 규제자들은 물질적 에너지들이 그들 연관-동료들의 통제와 규정에 종속되게 만드는, 그러한 변화들을 물질적 에너지 안에서 시작한다. 이들 존재들은 모론시아 힘의 발전기일 뿐 아니라 순환회로 규제자들이다. 발전기가 대기로부터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과 아주 흡사하게, 살아있는 이 모론시아 발전기들도 공간에 편재하는 에너지들을, 모론시아 감독자들이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몸체들과 생명 활동들 속으로 직조하는 그 물질들로 바꾸는 것으로 보인다.

48:2.15 (543.9) 2. 체계 조화-협동자들. 각각의 모론시아 세계는 별개 계층의 모론시아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간들이 이들 구체들을 그리기에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각각의 연속적인 과도기 구체에서, 필사자들은 상승하는 생존자의 진보하는 영성화에 일치하도록 점진적으로 변형되는 모론시아 실존에 속하는 식물생명과 다른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 세계의 에너지 체계가

그렇게 개별화됨으로, 이 조화-협동자들은 그렇게
차이 나는 힘 체계들을 모든 특별한 집단의 연관된
구체들을 위한 활동단위로 조화시키고 혼합한다.

48:2.16 (543.10)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그들이 한 모론시아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로 전진할 때 물리적 상태에서부터
영적 상태로 점진적으로 진보 한다; 그러므로 모론시아
구체들의 상승 비율과 모론시아 형체들의 상승 비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48:2.17 (543.11) 맨션세계 상승자들이 한 구체로부터 다른 구체로
나아갈 때, 그들은 진보된 세계의 체계 조화-협동자들의
접수자들에게, 운송 세라핌천사에 의해 전달된다. 땅에서
기원된 필사자들의 첫 번째 영접 세계에 있는 부활실과
비슷한 과도기 방들이 있는 70개의 방사형 부속건물들의
중앙에 있는 독특한 그 성전들에서, 창조체 형태의
필연적인 변화들이 체계 조화-협동자들에 의해
기술적으로 달성된다. 이 초기 모론시아-형태 변화들은
그것들이 성취되기까지 표준시간으로 약 7일이 소요된다.

48:2.18 (544.1) 3. 행성 보호관리자들. 맨션 구체들로부터 우주
본부들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모론시아 세계는, 70명의

수호자들의—모론시아 관련사들에 관한—보호 속에 있다. 그들은 최극의 모론시아 권한의 지역 행성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 협의회는 구체들에 도착한 모든 상승하는 창조체들에게 모론시아 형체들을 위한 물질을 수여하며 상승자가 다음 구체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창조체 형체 안에서의 변화들을 허락한다. 맨션세계들을 지나간 후에, 너희는 의식을 잃는 일이 없이 모론시아 삶의 한 위상으로부터 다른 위상으로 전환될 것이다. 무의식은 초기의 변형들에서만 그리고 한 우주로부터 다른 우주로 그리고 하보나로부터 파라다이스로 옮기는 후기 변환들에서만 나타난다.

48:2.19 (544.2) 4. 병합된 통제자들. 매우 기계적인 이 존재들 중 하나는 모론시아 세계의 각각의 행정-관리적 단위 중심에 항상 위치하고 있다. 병합된 통제자는 물리적, 영적, 그리고 모론시아적인 에너지들에 대해 예민하고 그것들과 함께 기능 한다; 두 명의 체계 조화-협동자들, 네 명의 순환회로 규제자들, 한 명의 행성 보호관리자, 한 명의 연락 안정자, 그리고 한 명의 연관-동료 등록자 또는 한 명의 선택 분류자가 항상 이 존재와 연관되어 있다.

48:2.20 (544.3) 5. 연락 안정자들. 이들은 영역의 물리적 그리고 영기세와 관계적-연합된 모론시아 에너지의 규제자들이다. 그들은 모론시아 에너지가 모론시아 물질로 바뀌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실존에서의 전체 모론시아 조직은 안정자들에게 달려있다. 그들은 물질화가 발생할 수 있는 시점으로 에너지 회전 속도를 낮춘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존재들의 사명활동을 비유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언어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을 크게 벗어난다.

48:2.21 (544.4) 6. 선택 분류자들. 너희가 모론시아 세계의 한 등급 또는 위상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진보할 때, 너희는 재(再)-조율 또는 진보-동조를 받지 않으면 안되며, 너희를 모론시아 삶과의 점진적 동조성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선택 분류자들의 임무이다.

48:2.22 (544.5) 생명과 물질의 기본 모론시아 형태들이 첫 번째 맨션세계로부터 마지막 우주 과도기 구체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반면, 물질적인 상태에서부터 영적인 상태로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기능적 진보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균일하지만 연속적으로 진보하고 영성화하는 창조에 대한

너희의 적응은 이 선택적 재(再)-조율에 의해 이루어진다. 개인성의 기능구조에의 그러한 조절은, 너희가 동일한 모론시아 형체를 유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새로운 창조와 대등하다.

48:2.23 (544.6) 너희는 이 검사관들의 시험에 반복적으로 임할 수 있고, 너희가 합당한 영적 성취를 이룩하자마자, 그들은 너희가 진보된 신분이 되었음을 기꺼이 보증할 것이다. 이 진보적 변화들은 모론시아 환경에 대한 변형된 반응의, 음식의 필요성과 수많은 다른 개인적 실천 관행들에 있어서의 변형들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48:2.24 (544.7) 선택 분류자들은 또한 공부와 가르침 그리고 다른 계획들의 목적을 위한 모론시아 개인성들의 집단화에 있어서 큰 봉사를 한다. 그들은 일시적 관계적-연합에서 최고로 기능을 발휘하게 될 자들을 자연스럽게 지적한다.

48:2.25 (544.8) 7. 연관-동료 등록자들. 모론시아 세계는 자체 기록자들을 갖고 있으며, 그들은 모론시아 창조들에 토착적인 기록들과 기타 자료들에 대한 감독과 보호에 영 기록자들과 관계적-연합하여 봉사한다. 모론시아 기록들은 모든 개인성들의 계층에 가능하다.

48:2.26 (545.1) 모든 모론시아 과도기 영역들은 물질적 존재 그리고 영 존재들이 똑같이 접근할 수 있다. 모론시아 진보자들로서 너희는 물질적 세계 그리고 물질적 개인성들과 충분한 접촉을 이룰 수 있으며 반면, 너희는 영 존재들을 점점 더 식별하고 그들과 형제우애를 가지게 된다; 모론시아 체제를 떠나게 될 때까지, 너희는 단독 메신저들과 같은, 비교적 높은 유형들을 제외하고 모든 계층의 영들을 보게 될 것이다.

제 3 장. 모론시아 동행자

48:3.1 (545.2) 맨션세계와 모론시아 세계의 이 무리는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10만 명의 집단들로 시대에 걸쳐 창조되었으며, 네바돈에는 현재 이 독특한 존재들이 700억 명 이상 존재한다.

48:3.2 (545.3) 모론시아 동행자들은 구원자별에서 가까운 특별한 행성에서 멜기세덱에 의해 봉사를 위한 훈련을 받으며; 그들은 중앙 멜기세덱 학교들을 체험하지 않는다. 그들은 체계들의 가장 낮은 맨션세계로부터 구원자별의 가장 높은 연구 구체들에 이르기까지 봉사하지만,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서 그들을 만나는 일은 드물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들의 일반적인 감독 하에 그리고
멜기세덱들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봉사한다.

48:3.3 (545.4) 모론시아 동행자들은 한 지역우주
안에—지역체계들의 첫 번째 맨션세계들마다, 10,000개의
본부를 유지 한다. 그들은 거의 전적으로 자아-관리
계층이며 일반적으로 지능적이고 충성스러운 존재들의
집단이지만; 때때로 어떤 불행한 천상의 반역과 연결되어
그들이 빛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유익한 창조체들
중 수천 명이 사타니아에서 루시퍼 반역의 기간에
유실되었다. 너희 지역체계는 현재 이 존재들의 배정된
숫자를 다 채우고 있으며, 루시퍼 반역으로 결손된 부분은
최근에 이르러서야 보충되었다.

48:3.4 (545.5) 별개의 두 유형의 모론시아 동행자들이
존재하는데; 한 유형은 적극적이고, 다른 하나는
내향적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들이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그들은 성적(性的) 창조체가 아니지만, 서로에게
감동적으로 아름다운 애정을 현시한다. 그리고 그들은
물질적 (인간적) 감각에서는 거의 어울리지 않는 반면,
창조체 실존의 계층 면에서 보면 인간 종족들과 아주

가깝다. 세계들의 중도 창조체들은 너희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다; 그 다음에는 모론시아 케루빔, 그리고 그 다음이 모론시아 동행자들이다.

48:3.5 (545.6) 이 동행자들은 감동적으로 애정이 깊으며 매력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들이다. 그들은 독특한 개인성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너희가 맨션세계들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을 한 등급으로 인식하는 것을 배운 후에, 너희는 곧 그들의 개별성을 식별하게 될 것이다. 필사자들은 모두 서로 비슷하다; 동시에 너희 각각은 별개의 식별 가능한 한 개인성을 가지고 있다.

48:3.6 (545.7) 이 모론시아 동행자들의 활동의 본질에 대한 어떤 개념의 일부는 지역체계에서의 그들의 활동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함으로써 추론될 수 있다:

48:3.7 (545.8) 1. 순례자 수호자들은 그들의 모론시아 진보자들과의 관계적-연합 속에서 특별한 임무들에 배정되지 않는다. 이 동행자들은 모론시아 생애 전체를 책임지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론시아 그리고 과도기 사명활동 전체의 활동을 조화-협동시키는 존재들이다.

48:3.8 (546.1)

2. 순례자 접수자와 자유 동료자들. 이들은 맨션세계들에 새로 도착하는 자들의 사회적 동행자들도이다. 너희가 최초의 맨션세계에서 시간의 첫 번째 변천 수면으로부터 깨어났을 때, 너희가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모론시아 삶으로 들어가는 부활을 체험을 하였을 때, 그들 중 하나가 틀림없이 너희를 곁에서 환영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깨어나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환영을 받은 때로부터 첫 번째 단계 영으로서 지역우주를 떠나게 되는 날까지 이 모론시아 동행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48:3.9 (546.1)

동행자들은 개별존재들에게 영구적으로 배정되지는 않는다. 맨션세계들 또는 보다 높은 세계들 중 하나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는 연속되는 여러 경우들 각각마다 하나의 다른 동행자를 가질 것이며 그리고 동행자 없이 오랜 기간 동안 갈 수도 있다. 그것은 모두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며 또한 가능한 동행자들의 공급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48:3.10 (546.1)

3. 천상의 방문자 영접자. 친절한 이 창조체들은 과도기 세계들에 우연히 머물 수 있는 학생 방문자들 또는

다른 천상의 존재들로 이루어진 초(超)인간 집단들을 대접하는 일에 전념되어 있다. 너희는 너희가 체험적으로 달성하였던 모든 영역을 방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학생 방문자들은 거주민이 사는 모든 행성들, 심지어는 고립되어 있는 행성들도 방문할 수 있다.

48:3.11 (546.1) 4. 조화-협동자와 연락지도자. 이 동행자들은 모론시아 교감의 촉진에 그리고 혼란의 예방에 전념되어 있다. 그들은 사회적 행위성과 모론시아 진보의 강사들이며, 상승하는 필사자들 중에서 학습시간들과 다른 집단 활동들을 후원한다. 그들은 자기 학생들을 모으고 그리고 때때로 그들의 프로그램들을 꾸미기 위하여 천상의 거장과 복귀 지도자들을 소집하는 광대한 지역들을 유지하고 있다. 너희가 진보할 때, 너희는 이 동행자들과 긴밀한 접촉을 갖게 될 것이며, 너희는 두 집단들과 점점 더 굉장히 정답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적극적인 형태의 동행자와 연관될 것인가 아니면 내향적인 유형과 연관될 것인가는 우연의 문제이다.

48:3.12 (546.1) 5. 통역자와 번역자. 초기의 맨션계 삶 동안 너희는 통역자와 번역자에게 종종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지역우주의 모든 언어들을 알고 말 한다; 그들은
영역들에서 어학에 능통한 자들이다.

48:3.13 (546.1) 너희는 자동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그곳에서도 이곳에서와 같이 언어를
배우게 될 것이고, 이 훌륭한 존재들이 너희의 언어 교사가
될 것이다. 맨션세계에서의 첫 번째 학습은 사타니아의
말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는 네바돈의 언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새로운 이 말들을 습득하는 동안 모론시아
동행자들은 너희의 유능한 통역자 그리고 인내심 있는
번역자들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들 세계들 어느 곳의
방문자들도 결코 마주하지는 못하겠지만, 모론시아
동행자들 중 어느 하나가 통역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48:3.14 (546.1) 6. 소풍 전환 감독자들. 이 동행자들은 본부 구체에
이르는 그리고 과도기 문화의 주변 세계들에 이르는 보다
긴 여행들에서 너희와 동행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훈련과
문화의 체계 세계들에 관한 그러한 모든 개별 그리고 집단
여행들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감독한다.

48:3.15 (546.1)

7. 지역과 건물 보호관리자들. 물질적 그리고 모론시아 구조물들조차도 너희가 맨션계 삶에서 진보함에 따라 점점 더 완전하게 되고 장엄하게 된다. 개별존재들로서 그리고 집단들로서, 너희는 다른 맨션세계들에 너희를 머물게 하는 본부로 배정된 거주지들에서 특정한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다. 이들 구체의 활동들 대부분은 다양하게 지정된 원들과 정사각형들 그리고 삼각형들의 열린 율타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맨션세계 구조물들 중 다수는 지붕이 없으며, 장엄한 구조물과 멋진 장식물들로 둘러싸여 있다. 고안건축의 세계들을 지배하고 있는 기후를 비롯하여 다른 물리적 환경들은 지붕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게 한다.

48:3.16 (547.1)

상승하는 삶의 과도기 위상들에 대한 이 보호관리자들은 모론시아 관련사들의 관리에서 최극이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최극존재의 사실화에 매달려 있으며, 그들은 항상 모론시아 동행자들로 남아 있다; 그들은 결코 다른 임무들을 수행하지 않는다.

48:3.17 (547.2) 체계들과 우주들이 빛과 생명 안에 정착하게 되면, 맨션세계들은 모론시아 훈련의 과도기 구체들로서 기능하는 것을 점점 더 멈추게 된다. 최종자가 그들의 새로운 훈련 체제를 더욱 더 세우고, 그것은 대우주의 현재 차원으로부터 미래의 외계우주들의 차원으로 조화우주의식작용을 전환시키도록 고안된 것처럼 보인다. 모론시아 동행자들은 최종자와 관계적-연합하여 그리고 현재 유란시아에 계시되지 않은 수많은 다른 영역들에서 점점 더 기능하도록 되어 있다.

48:3.18 (547.3) 너희는 너희가 머무는 기간이 길든지 아니면 짧든지 간에, 맨션세계들에서 누리는 너희의 즐거움에 의존재들이 아마 많이 기여하도록 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구원자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그것들을 계속 즐기게 될 것이다. 기술적으로 볼 때 그것들은 너희의 생존 체험에 근본이 되는 어느 부분도 아니다. 너희는 그것들 없이도 구원자별에 도달할 수 있지만, 너희는 그것들을 크게 아쉬워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지역우주에서 갖는 너희 상승 생애의 개인성 호사품들이다.

제 4 장. 복귀 지도자

48:4.1

(547.4)

기쁜 환희와 상응하는-미소는 음악만큼 보편적이다. 환희와 웃음에 상응한 모론시아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다. 상승하는 삶은 일과 놀이—임무로부터의 해방—사이에서 거의 똑같이 나뉘어 있다.

48:4.2 (547.5)

천상의 이완-휴식과 초인간적 유머는 그것들의 인간적 동의어와 매우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그 둘 모두의 한 형태에 실재적으로 빠져 있다; 이상적인 유머가 유란시아에서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을 우리들의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 실제로 성취한다. 모론시아 동행자들은 능숙한 놀이 후원자들이며, 그들은 복귀 지도자들에 의해 가장 훌륭하게 도움을 받는다.

48:4.3 (547.6)

만약에 그들이 유란시아에 있는 더욱 높은 익살꾼들과 비슷하였다면, 변화와 이완-휴식에 대한 이 지도자들, 모론시아 그리고 영 영역들의 고양된 유머의 이 봉사자들의 기능에 대한 개념을 전달하려는 노력에서 그것이 지극히 거칠고 어느 정도 불행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복귀 지도자들의 기능을 너희가 아마도 잘 납득하였을 것이다.

48:4.4 (547.7) 영 유머에 대해 논의함에 있어서, 먼저 너희에게 그것이 무엇이 아니다 라는 점을 말하겠다. 영 농담은 연약하고 잘못된 불행들에 대한 강조의 티가 결코 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신성의 영광과 정의(正義)에 대한 모독적인 것도 아니다. 우리들의 유머는 깊은 이해에서의 일반적인 세 가지 차원을 포용 한다:

48:4.5 (547.8) 1. 회상하는 농담들. 어떤 사람의 투쟁, 갈등,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 그리고 종종 바보스럽고 어린아이 같은 갈망으로 인한 체험 안에 있는 과거의 에피소드들을 기억함으로써 나오는 우스갯 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위상의 유머는 기억 재료를 위하여 과거에서 끌어오는 깊게-자리하고 오래 머무르는 능력으로부터 나오며, 그 자료로 즐겁게 운치를 내거나 아니면 현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한다.

48:4.6 (548.1) 2. 시사 유머. 그렇게 자주 우리에게 심각한 관심을 가지게 한 많은 것에 대한 무의미함, 우리들의 심각한 개인적 갈망 대부분이 사소함을 발견할 때의 기쁨. 우리가 미래의 확실성을 위하여 현재의 갈망들을 최고로

감소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유머의 이 위상을 가장 좋아한다.

48:4.7 (548.2) 3. 예언적 기쁨. 이 유머의 위상을 상상하는 것이 필사자들에게는 아마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는—영들과 모론시아인들 뿐만 아니라 필사자들에게도—“모든 것들이 선을 위하여 함께 작용함”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독특한 만족감을 얻는다. 천상의 유머의 이러한 양상은 우리 상급자들의 애정 있는 보살핌에 대한 그리고 우리 최극 지도자들의 신성한 안정성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으로부터 나온다.

48:4.8 (548.3) 그러나 영역들의 복귀 지도자들은 다양한 계층들의 지능존재들의 높은 유머를 묘사하는 일에만 배타적으로 관련되지는 않는다; 그들은 또한 기분전환, 영적 레크리에이션과 모론시아 오락에 대한 지도에도 종사한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 그들은 천상의 거장과 긴밀하게 협동한다.

48:4.9 (548.4) 복귀 지도자 그들은 창조된 집단이 아니다; 그들은 하보나 원주민들로부터 아래로는 공간의 메신저 무리들 그리고 시간의 사명활동하는 영들을 거쳐 진화

세계들로부터의 모론시아 진보자들에 이르기까지의 존재들을 포함하는 모집된 단체이다. 모두가 지원자들인데, 생각 변화와 마음 휴식의 성취에서 자기 동료들을 돕는 일에 애쓰며, 그러한 태도들이 고갈된 에너지들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익하기 때문이다.

48:4.10 (548.5) 달성의 노력들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고갈되었을 때,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보충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동안, 다른 날들과 시대들의 법규들을 다시 지키며 사는 데 있어서 수궁이 되는 기쁨이 있다. 종족 또는 계층의 초기 체험들은 편안하게 추억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 거장들이—그들은 존재의 덜 체험된 상태 또는 발달에 있어서의 이전 상태에 대한 기억으로 되돌아가도록 돕고 있다—복귀 지도자들과 불리는 정확한 이유이다.

48:4.11 (548.6) 선천적인 창조자들, 따라서 자동으로 자아-회복하는 이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반응에서 항상 그리고 영원하게 철저히 사무적인 힘 중심과 물리통제자와 같은, 어떤 높은 특별한 유형의 창조체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존재들은 이러한 종류의 복귀를 즐긴다. 기능적 임무의 긴장감에서의 이 주기적 해제는 우주들의

우주에 두루 모든 세계들에서의 삶의 정해진 한 부분이지만 파라다이스 섬에서는 그렇지 않다. 중앙 거주지의 토착적인 존재들은 고갈의 여지가 없고, 그러므로 재(再)-에너지화에 관련이 없다. 그리고 영원한 파라다이스 완전의 그러한 존재들에게 있어서는, 진화적 체험들에 대한 그러한 복귀가 있을 수 없다.

48:4.12 (548.7) 우리들 대부분은 비교적 낮은 실존 단계들을 통하여 또는 우리 계층들의 진보적 차원들을 통하여 올라왔으며, 우리들이 초기에 체험한 어떤 에피소드들을 뒤돌아보는 것은 상쾌한 일이고 어느 정도 즐거운 일이다. 어느 존재의 계층에 있어서 오래된 그리고 마음의 기억 속에 가물거리는 것을 깊이 사색하는 데에는 편안함 있다. 미래는 갈등과 발전을 의미 한다; 그것은 일과 노력과 성취가 있다는 증거이지만; 어떤 것들에 대한 과거의 위치는 이미 정복되었고 성취되었다; 과거의 깊은 사색은 흥겨움에 가까운 마음의 모론시아 상태와 영 환희를 유발시키는 이완-휴식과 그러한 태평스러운 복습을 허락한다.

48:4.13 (548.8) 심지어는 필사자의 유머도 그것이 어느 누군가의 현재 발달 상태 바로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에피소드들을 묘사할 때, 또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가정된 열등자들과 연관되는 체험들로, 누군가 가정된 우월자들이 떨어져 피해자가 되는 것을 묘사할 때 가장 풍성하게 된다. 유란시아에 있는 너희는 너희의 유머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저속하고 고약한 것들 대부분을 허용해 왔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너희는 비교적 유사한 유머 감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축하를 받을 만하다. 너희 종족들 중 일부는 그것의 풍부한 특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자신들의 이 세상 생애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 분명히 너희는 유머의 기법에 있어서 많은 것을 너희 아담의-유산으로부터 받아들였는데, 음악이나 예술보다도 훨씬 더 그러하다.

48:4.14 (549.1) 사타니아 전체는, 유희의 기간 동안,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이 실존의 낮은 단계의 기억들을 새롭게 소생시킬 때, 유란시아로부터 온 복귀 지도자 무리단의 유쾌한 유머에 의해 교화된다. 우리는 천상의 유머 감각을 항상 소유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가장 어려운 임무에 임하고 있을 때에도 그러하다. 그것은 어느 존재의 자아-

중요성 자각의 과도한 발달을 피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각 계층의 심각한 임무로부터 휴식을 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너희가 “재미있게 논다”라고 말하듯이, 그렇게 유머의 고삐를 자유롭게 풀어놓지는 않는다.

48:4.15 (549.2) 우리가 우리의 자아-중요성을 배가하도록 유혹 받을 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조물주들의 위대함과 장엄함의 무한성에 대하여 잠시 멈추어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의 자아-영광은 터무니없이 어처구니없는 것이 될 것이며, 오히려 유머에 가까울 것이다. 유머의 기능들 중의 하나는 우리 자신의 심각성을 줄여주도록 우리 모두를 돕는 것이다. 유머는 자기 고양(高揚)에 대한 신성한 해독제이다.

48:4.16 (549.3) 유머의 이완-휴식과 기분전환에 대한 필요성은 위를 향한 자신들의 갈등 속에서 지속적인 긴장감과 관련되어 있는 상승하는 존재들의 그 계층들에게 가장 크다. 삶의 양 극단들은 익살스러운 기분전환을 거의 필요하지 않다. 원시인들은 그것에 대한 능력이 없으며, 파라다이스 완전의 존재들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하보나의 무리는 본성적으로 지극히 행복한 개인성들의 유쾌하고 상쾌한 모임이다. 파라다이스에서는 경배의 본질특성이 복귀 활동들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한다. 그러나 파라다이스 완전의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에서 생애를 시작하는 그들 가운데에는, 복귀 지도자들의 사명활동을 위한 넓은 장소가 있다.

48:4.17 (549.4) 더욱 높은 필사 종족들일수록, 긴장감이 더 크고 유머에 대한 능력이 더 크며 그것에 대한 필요성도 그러하다. 영 세계에서는 그 반대이다: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복귀 체험들에 대한 기분전환이 점점 덜 필요하다. 그러나 파라다이스로부터 세라핌천사 무리로 영 일생의 단계를 낮출 때, 환희의 임무와 명랑함의 사명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된다. 이전의 체험들의 지능적 상태에 대한 주기적 복귀의 원기 회복을 가장 필요로 하는 존재들은 인간 종족들의 더 높은 유형 , 모론시아인, 천사, 그리고 물질아들들이며, 비슷한 유형의 모든 개인성들도 그러하다.

48:4.18 (549.5) 유머는 발전적 진보와 고귀한 성취를 위한 격렬한 갈등과 관계적-연합하여 지속적이고 심각한 자아-응시의

단조로움으로 기인된 과도한 압박감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 안전장치로서 기능해야만 한다. 또한 유머는 사실의 또는 진리의 예기치 않은 영향의, 굳어버리고 완고한 사실과 유연하고 항상-살아있는 진리의, 충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음에 직면할 것에 결코 확신할 수 없는, 필사자 개인성은, 상황의 예기치 못하는 본성이 사실이 되는지 또는 진실이 되는지를, 유머를 통하여—요점을 보고 그리고 통찰을 성취함으로—신속하게 파악한다.

48:4.19 (549.6) 유란시아의 유머는 매우 조잡하고 가장 비예술적인 반면, 하나의 건강 보험으로서 그리고 감정적 압박감에 대한 해방자로서 귀중한 목적을 봉사하며, 그리하여 해로운 신경 긴장 상태와 과도하게 심각한 자아-응시를 예방한다. 유머와 놀이—이완-휴식—은 앞으로 나가는 노력의 반응이 아니다; 그것들은 항상 뒤를 돌아보는 것의 반향, 과거에 대한 회상이다. 심지어는 현재의 너희가 그러하듯 유란시아에서도, 너희가 더 새롭고 더 높은 지적 수고들의 노력을 잠시 동안 중지하고서 그리고 너희 조상들의 좀 더 단순한 일들로

되돌아갈 때, 너희는 항상 그런 것들이 활력을 되찾게 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48:4.20 (550.1) 유란시아인의 유희적 삶의 원칙은 철학적으로 건전하다, 그리고 하보나 순환회로들을 거쳐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해변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상승하는 삶에 두루 계속하여 적용된다. 상승하는 존재들로서 너희는 모든 이전의 더 낮은 실존에 대한 개인적 기억을 소유하고 있으며, 과거에 대한 그러한 정체성 기억들이 없다면 현재의 유머, 필사자 웃음 또는 모론시아 환희에 대한 기본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현재의 기분전환과 오락을 위해 기본을 제공하는 것은 과거 체험에 대한 이 회상(回想)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너희의 긴 모론시아와, 그 다음의 점증되는 영적 생애에 두루 너희의 이 땅에서의 유머와 상응한 천상의 것들을 즐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승하는 필사자 개인성의 영원한 부분이 되는 하느님의 그 부분(조절자)은, 시간과 공간의 상승하는 창조체들의 즐거운 표현, 영적인 웃음마저도 신성의 조화 음(音)을 바칠 것이다.

제 5 장. 맨션세계 선생

48:5.1 (550.2) 맨션세계 선생들은 버림받은 그러나 영화롭게 된 케루빔과 사노빔의 무리단이다. 시간의 순례자가 공간의 시험세계로부터 모론시아 훈련의 맨션 그리고 그에 연관된 세계들로 나아갈 때, 그의 개인적 또는 집단 세라핌천사, 운명의 수호자가 그와 동행한다. 필사 실존의 세계에서는 세라핌천사는 케루빔과 사노빔에 의해 훌륭하게 도움을 받지만; 그녀의 필사자 피보호자가 육신의 숙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상승 생애를 시작할 때, 물질 이후 또는 모론시아 삶이 시작할 때, 함께 있는 세라핌천사는 그녀의 이전(以前) 부관들, 케루빔과 사노빔의 봉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48:5.2 (550.3) 봉사하는 세라핌천사의 분리된 이 보좌관들은 종종 우주 본부로 소환되며, 그곳에서 그들은 우주 어머니 영의 친밀한 품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맨션세계 선생들로서 체계 훈련 구체들로 나아간다. 이 선생들은 물질세계들을 종종 방문하며 가장 낮은 맨션세계들로부터 우주 본부와 연결된 가장 높은 교육 구체에 이르기까지 기능한다. 그들 자신의 동의에 따라, 그들은 봉사하는 세라핌천사와 함께 그들의 이전(以前) 연관하던 일로 돌아갈 수도 있다.

48:5.3 (550.4) 사타니아에는 이들 선생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그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례에서, 세라핌천사가 조절자-융합 필사자와 함께 안쪽으로 진행할 때, 케루빔과 사노빔은 둘 모두 뒤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48:5.4 (550.5) 맨션세계 선생들은, 대부분의 다른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멜기세덱들에 의해 임명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모론시아 동행자들에 의해 감독을 받지만, 개별존재들로서 그리고 선생들로서 그들은 그들이 강사로 기능할 수 있는 학교들 또는 구체들의 실질적 우두머리들에 의해 감독을 받는다.

48:5.5 (550.6) 진보된 이 케루빔은 그들이 세라핌천사에게 배정되었을 때 활동했던 것처럼 대개 쌍으로 활동한다. 그들은 본질적인 면에서 모론시아 유형의 실존과 매우 가까우며, 그들은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선천적으로 동정심이 많은 선생들이며 맨션세계 그리고 모론시아 교육 체계의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48:5.6 (551.1) 모론시아 삶의 학교들에서는 이 선생들이 개별, 집단, 학급, 그리고 대중 교육에 참여한다.

맨션세계들에서는 그러한 학교들이 각각 100개의 구분을 갖는 세 개의 일반적 집단들. 사고의 학교, 느낌의 학교, 행동의 학교들로 조직 된다: 너희가 별자리에 도달할 때, 거기에는 윤리 학교와 관리-행정 학교 그리고 사회적 조절의 학교가 덧붙여질 것이다. 우주 본부 세계들에서 너희는 철학과 신성 그리고 순수 영성의 학교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48:5.7 (551.2) 너희가 지구에서 배울 수가 있었던, 그러나 배우지 못한 그것들은 이 신실하고 인내심이 많은 선생들의 지도 아래에서 반드시 획득될 것이다. 파라다이스에 이르는 왕도(王道), 지름길, 또는 쉬운 길은 없다. 경로의 개별적인 변화와 상관없이, 너희는 다른 구체로 진행하기 전에 한 구체의 가르침을 숙달하며; 적어도 이것은 너희가 태어난 세계를 일단 떠난 후에 이것은 사실이다.

48:5.8 (551.3) 모론시아 생애의 목적들 중 하나는, 꾸물거림, 얼버무림, 불성실, 문제 기피, 부당성, 그리고 편안함의 추구하고 같은 동물적 흔적의 특색들을 살아남은 필사자들로부터 영구히 근절하는 것이다. 맨션계 삶은 일찍부터 젊은 모론시아 학생들에게 뒤로 미루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피하는 것이 될 수 없음을 가르친다. 육신에서의 삶 이후에는 시간이, 상황에서 발뺌할 수 있거나 또는 즐겁지 않은 의무들을 피할 수 있는 기법으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다.

48:5.9 (551.4) 체재하는 구체들 중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맨션세계 선생들은, 체험과 함께, 체계와 별자리의 교육 구체들을 거쳐 구원자별의 훈련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전진한다. 그들은 우주 어머니 영의 품에 그들이 안겨진 후 또는 그 이전에 어떤 특별한 단련도 받지 않는다. 그들은 맨션세계에 체류하는 그들의 학생들에게 출생지가 되는 세계들에서 세라핌천사 연관-동료들로서 봉사하는 동안 그들의 일을 위해 이미 훈련을 받았다. 그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 진보하는 필사자들과 실재적인 체험을 가졌었다. 그들은 실천적이고 동정심이 많은 선생들, 현명하고 이해심이 많은 강사들, 유능하고 실력 있는 안내자들이다. 그들은 상승 계획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으며 진보 생애의 첫 위상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체험되어 있다.

48:5.10 (551.5) 이들 선생들 중 오래된 자들 대부분, 구원자별 순환회로의 세계들에서 오랫동안 봉사해 온 그들은 우주 어머니 영의 품에 다시 안기며, 두 번째의 이 포옹으로부터 이 케루빔과 사노빔은 세라핌천사의 지위로 창발한다.

제 6 장. 모론시아 세계 세라핌천사-과도기 사명활동자

48:6.1 (551.6) 행성 조력자들로부터 최극 세라핌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천사들이 모론시아 세계들에서 사명활동하는 반면, 과도기 사명활동자들은 이 활동들에 더욱 배타적으로 배정된다. 이 천사들은 세라핌천사 봉사자들 중 여섯 번째 계층이며, 그들의 사명활동은 육신으로의 일시적 삶으로부터 일곱 맨션세계들에서의 모론시아 실존의 초기 단계들에 이르기까지 물질적 그리고 필사 창조체들의 변환을 촉진시키는 일에 헌신되어 있다.

48:6.2 (551.7) 너희는 상승하는 필사자의 모론시아 삶이 도덕적 지위의 창조체 마음에 영 조절자가 내주하는 바로 그 순간에 혼의 개념에서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 위에서 실제로 시작되었음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 필사자 혼은 지역우주의 모론시아 구체들의 더

높은 차원들에 대한 인식까지 초(超)필사자 기능의 잠재적 가능성을 갖는다.

48:6.3 (552.1) 아무튼 너희는 너희가 맨션세계들에 도달하기 전에는 과도기 세라핌천사의 사명활동을 의식하지 못할 것이며, 그것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일곱 개의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배정되었음으로, 그들의 필사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지치지 않고 일 한다:

48:6.4 (552.2) 1. 세라핌천사 전도자들. 너희가 맨션세계들에서 의식을 갖게 되는 순간, 너희는 체계의 기록들에서 진화하는 영들로 분류된다. 정말로 너희는 아직 실체 안에서 영들이 아니지만, 너희는 더 이상 필사자 또는 물질적 존재도 아니며; 너희는 영-이전(以前) 생애를 시작하였고 모론시아 삶에 정식으로 들어오도록 허락되었다.

48:6.5 (552.3) 맨션세계들에서 세라핌천사 전도자들은 에덴시아와 구원자별과 유버사 그리고 하보나에 이르는 선택 경로들 중에서 너희가 현명하게 고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에 똑같이 제안할만한 경로들이 여러 개 있다면, 이것들이 너희 앞에 놓여질 것이며, 너희는

너희에게 가장 좋아 보이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허용될 것이다. 그때 이 세라핌천사는 각각의 상승하는 혼에게 가장 유익이 될 만한 그 경로에 관하여 예루셈에 있는 24명의 충고자들에게 추천한다.

48:6.6 (552.4) 너희는 너희 미래 경로에 대하여 제한이 없는 선택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너희의 미래 영 달성을 위해 가장 알맞도록 과도기 사명활동자들과 그들의 상급자들이 현명하게 결정한 것의 한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영 세계는, 너희가 선택하는 경로가 너희에게 불리하지 않거나 너희 동료들에게 해롭지 않다면 너희의 자유의지 선택을 존중한다는 원칙 위에서 지배된다.

48:6.7 (552.5) 이 세라핌천사 전도자들은 영원한 진보의 복음, 완전성 달성의 승리를 선포하는 일에 전념되어 있다. 맨션세계들에서 그들은 선(善)함이 보존되고 그리고 지배한다는 위대한 법령을 선포 한다: 선한 어떤 행동도 전적으로 손실되는 일이 결코 없으며; 그것은 오랫동안 휘방을 받았겠지만 전적으로 소멸된 적은 없으며, 그 동기의 신성에 비례하여 영원히 효력이 있다.

48:6.8 (552.6) 심지어 유란시아에서도 그들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느님의 선함”에 대한 설교에 집착하는 진리와 정의(正義)의 인간 선생들에게,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라고 조언한다. 그리하여 이 진리들은 너희 세계에 이렇게 선언되었다:

48:6.9 (552.7) 하느님들은 나를 돌보시는 이들이시니,

48:6.10 (552.8) 나는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 나란히 서서 영속하는 생명의 아름다운 길과 영광스러운 새로움에 나를 인도합니다.

48:6.11 (552.9) 나는 이 신성한 현존 안에서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48:6.12 (552.10) 내가 비록 불안의 골짜기로 내려가거나 의심의 세계들로 올라갈지라도,

48:6.13 (552.11) 내가 외로움 속에서 일하거나 나의 동료 친구들과 함께 행할지라도,

48:6.14 (552.12) 내가 빛의 합창 속에서 승리하거나 구체들의 외로운 곳에서 넘어지더라도,

48:6.15 (552.13) 당신의 선한 영이 나를 돌보실 것이며, 당신의 영광의 천사가 나를 위로할 것입니다.

48:6.16 (552.14) 내가 비록 암흑과 죽음 그 자체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더라도,

48:6.17 (552.15) 나는 당신을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니,

48:6.18 (552.16) 이는 내가 당신의 이름의 영광과 때가 이르렀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48:6.19 (552.17) 당신은 성벽 위의 높은 곳에 당신과 함께 앉기까지, 나를 들어 높이실 것입니다.

48:6.20 (553.1) 이것은 밤 사이에 목동에게 속삭여 준 이야기이다. 그는 이것을 한 마디 한 마디 새길 수는 없었지만, 자기 기억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오늘날 기록된 그것처럼 많은 부분을 전해주었다.

48:6.21 (553.2) 이 세라핌천사들은 전체 체계뿐만 아니라 개별 상승자들에게도 완전성 달성의 복음에 관한 전도자들이기도 하다. 심지어는 지금도 사타니아의 젊은 체계에서 그들의 가르침들과 계획들이 미래 시대들을

위한 준비물을 제공하는데, 그때 맨션세계들은 필사자
상승자들에게 높은 곳에 있는 구체들에 이르는
디딤돌로서 더 이상 봉사하지 않을 것이다.

48:6.22 (553.3) 2. 종족 통역자들. 필사 존재들의 모든 종족들은
똑같지 않다. 정말로, 주어진 세계의 다양한 종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본성들과 경향들에 통용되는
하나의 행성 원형틀이 거기에 있지만; 뚜렷하게 다른 인종
유형들도 거기에 있으며, 매우 명확한 사회적 성향들이
인간 존재들의 서로 다른 이 기본 유형들의 후손들의
특성을 나타낸다. 시간 세계들에서는 세라핌천사 종족
통역자들이 이 종족들의 잡다한 관점들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종족 위원들의 노력을 더욱 증진하며, 그들은
맨션세계들에서 계속 활동하는데, 그곳에서도 동일한 이
차이점들이 어느 정도 존속되는 경향이 있다. 유란시아와
같은 혼동의 행성에서는, 뛰어난 이들 존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첫
번째 하늘의 유능한 사회학자들이며 현명한 인종적
충고자들이다.

48:6.23 (553.4) 너희는 “하늘”이라는 말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을 숙고해야만 한다. 너희 선지자들 대부분에 의해 착상하였던 하늘은 지역체계의 맨션세계들 중 첫 번째였다. 사도가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갔었다”고 말하였을 때, 그는 잠을 자는 동안 자신의 조절자가 분리되고 그리고 이 유별난 상태에서 일곱 맨션세계 중에서 세 번째까지 구체적으로 투사된 체험을 말한 것이었다. 너희 현자들 중 일부는 더 큰 하늘, “하늘들의 하늘”에 대한 환상을 보았었는데, 이중에서 7중 맨션세계 체험은 첫 번째에 불과 하였다; 두 번째는 예루셈이었고; 세 번째는 에덴시아와 그 위성들이었다; 네 번째는 구원자별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 구체들이었고; 다섯 번째는 유버사; 여섯 번째는 하보나; 그리고 일곱 번째는 파라다이스이었다.

48:6.24 (553.5) 3. 마음 계획자들. 이들 세라핌천사들은 모론시아 존재들을 효력 있게 무리를 짓는 일과 맨션세계들에서 그들이 협동하도록 조직하는 일에 헌신되어 있다. 그들은 첫 번째 하늘의 심리학자들이다. 세라핌천사 사명활동자들의 이 특정한 분야에 속한 대부분은 그 전에 시간의 자녀들에게 수호천사로서 체험을 가졌었으나,

그들의 피보호자들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맨션세계에서
개인성구현에 실패하였거나 아니면 영 융합의 기법으로
생존된 체험을 가지고 있다.

48:6.25 (553.6) 마음 계획자들의 임무는 맨션세계에 두루 과도기
안에 있는 조절자 혼들의 본성, 체험 그리고 지위를
연구하는 일, 그리고 배치와 진급을 위하여 그들을 무리로
묶는 일을 조성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들 마음 계획자들은
기획하거나 조종하지 않으며, 한편으로는 맨션세계
학생들의 무지나 한계를 장점으로 삼는다. 그들은 온통
공평하고 뛰어나게 공정하다. 그들은 너희의 새로 조성된
모론시아 의지를 존중 한다; 너희를 독립된 의지 존재들로
간주하고, 너희의 빠른 발달과 진보를 장려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때 너희는 참된 친구이자 납득하는 조언자,
“다른 이들이 너희를 보듯이 너희 자신을 보도록” 그리고
“천사들이 너희를 알듯이 너희 자신을 알도록” 너희를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천사들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이다.

48:6.26 (553.7) 심지어는 유란시아에서도, 이 세라핌천사들이
영속하는 진리를 가르친다: 만일 너희 자신의 마음이

너희를 잘 봉사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것을 너희를 항상 잘 봉사하는 나사렛 예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

48:6.27 (554.1) 4. 모론시아 조연자들. 이 사명활동자들이 그들의 이름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인간이 기원되는 세계들로부터 생존된 필사자들, 체계 본부의 보다 높은 학교들로 옮겨가는 혼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조연하도록 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생명 차원들의 체험적 통일에 대한 통찰력을 찾는 그들, 의미들의 집대성활동과 가치들의 통일을 시도하는 그들의 선생들이다. 이것이 필사자 삶에서의 철학, 모론시아 구체들에서의 모타의 기능이다.

48:6.28 (554.2) 모타는 우월한 철학보다 더욱 우월한 것이다. 두개의 눈이 하나의 눈과 비교되는 것과 같이 그것은 철학에 비교 된다; 의미들과 가치들에 대한 입체 효과를 갖는다. 물질적인 사람은 오직 하나의 눈을 가지고—평면으로—있는 그대로 우주를 본다. 맨션세계 학생들은—물질적 삶에 대한 인식 위에 모론시아 삶에 대한 인식을 첨가시킴으로써, 조화우주의 원근법의 깊이를 달성한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그들의 세라핌천사

조언자들의 지칠 줄 모르는 사명활동을 통하여 이 물질적 그리고 모론시아 관점들을 참된 초점에 모아지게 하며, 그들은 맨션세계 학생들과 모론시아 진보자들을 매우 끈기 있게 가르친다. 세라핌천사들의 최극 계층의 가르치는 조언자들 대부분은 시간의 필사자들의 새롭게 해방된 혼들에 대한 충고자들로서 그들의 생애를 시작했었다.

48:6.29 (554.3) 5. 기술자들. 이들은 새로운 상승자들로 하여금 모론시아 구체들의 새롭고도 비교적 낯선 환경에 그들 자신을 적응시키도록 돕는 세라핌천사들이다. 과도기 세계들에서의 삶은 물리적 그리고 모론시아 차원 둘 모두의 에너지들과 물질과 그리고 어느 정도는 영적 실체들과 실제적인 접촉을 이루게 한다. 상승자들은 모든 새로운 모론시아 차원에 순응해야만 하며,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은 세라핌천사 기술자들에 의해 크게 도움을 받는다. 이 세라핌천사들은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과 그리고 주(主)물리통제자들과 함께 연락자로서 활동하며 과도기 구체들에서 활용되는 그 에너지들의 본성에 관하여 상승 순례자들의 강사들로서 광범위하게

활동한다. 그들은 비상시의 공간 횡단자로서 봉사하며, 또한 수많은 또 다른 정규 임무와 특별 임무를 수행한다.

48:6.30 (554.4) 6. 기록자-교사들. 이 세라핌천사들은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경계선의 활동행위들, 사람들과 천사들의 관계들, 더 낮은 우주 영역들의 모론시아 활동행위들에 대한 기록자들이다. 또한 그들은 사실 기록의 능률적이고 효력적인 기법에 관하여 강사들로서 봉사한다. 지능적 조립과 관련 자료의 조화-협동에는 예술적 효과가 존재하며, 이 예술은 천상의 거장과 조화-협동함으로써 강화되며, 심지어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기록하는 세라핌천사들과 그렇게 해서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다.

48:6.31 (554.5) 모든 세라핌천사 계층의 기록자들은 모론시아 진보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일정한 시간을 할애한다. 시간의 사실들에 대한 이 천사 보호관리자들은 모든 사실 추구자들의 이상적인 강사들이다. 예루셈을 떠나기 전에, 너희는 사타니아 그리고 그것에 속한 619개의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역사에 매우 익숙하게 될 것이며 이 이야기들 대부분은 세라핌천사 기록자들에 의해 알려질 것이다.

48:6.32 (554.6)

이 천사들은 모두 시간의 사실들과 영원의 진리들에 대한 가장 낮은 보호관리자로부터 가장 높은 보호관리자에 이르기까지 확장된 기록자들의 고리에 속해 있다. 언젠가 그들은 너희로 하여금 진리뿐만 아니라 사실을 찾도록 가르치고, 혼은 물론 너희 마음을 확대하도록 가르칠 것이다. 지금도 너희는 너희 가슴의 정원에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의 메마른 모래들을 찾아내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교훈을 배우게 되면 형식은 가치가 없게 된다. 어떤 병아리도 껍질 없이는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껍질도 병아리가 부화한 후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렇지만 때로는 실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계시로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그것에 대한 체험적 정복에 필수가 되는 저들 서서히 창발하는 진리들에 치명적일 수 있다.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이상들을 가질 때, 그것들을 제거하지 말라; 그들로 하여금 키우도록 내버려 두라. 그리고 너희가 성인들로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동안, 너희도 역시 어린아이들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48:6.33 (555.1)

법이란 삶 그 자체이며 그것의 행위성에 대한 규칙들이 아니다. 악이란, 삶, 그것이 법이니, 그 삶에

따라붙는 행위성의 규칙들을 어긴 것이 아니고, 그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허위는 서술의 기법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왜곡과 같은 고의적인 어떤 것이다. 옛 사실들로부터 새로운 그림들의 창조, 자손들의 생활 안에서 부모로서의 삶의 재현—이것들은 진리의 예술적 승리이다. 털끝만한 변화의 기색, 참되지 않는 목적을 위한 궁리, 원칙인 그것의 작은 뒤틀림이나 왜곡—이것들이 거짓을 이룬다. 그러나 사실화된 진리에 대한 무속적 숭배물, 화석화된 진리, 소위 변하지 않는 진리의 쇠고랑들은 사람을 차가운 사실의 순환계 안에 눈먼 채로 머물게 한다. 사람은 사실에 관한한 기술적으로 옳을 수 있고 진리 안에서 영속적으로 그릇될 수 있다.

48:6.34 (555.2) 7. 사명활동 예비자들. 과도기 세라핌천사들의 모든 계층의 큰 무리단이 첫 번째 맨션세계에 있다. 운명 수호자들 다음으로, 이 과도기 사명활동자들은 인간들에게 세라핌천사의 모든 계층들을 가장 가까이 접근시키며, 너희의 여가 시간 대부분을 그들과 함께 보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은 봉사하기를 기뻐하며, 임무가 없을 때에는 종종 자원자들로써 사명활동한다. 많은 상승하는 필사자의 혼은, 세라핌천사 예비자들의 자원

봉사자들과의 개인적인 친구관계를 통하여, 봉사-하려는-의지의 신성한 불꽃에 의해 처음으로 불이 붙었다.

48:6.35 (555.3) 그들로부터 너희는 압력으로 하여금 안정성과 확실성을 개발하도록 배울 것이다; 신실하고 진지하며 그러면서 동시에 쾌활해 지는 것을 배울 것이다; 불평 없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두려움 없이 어려움과 불확실성에 마주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실패한다면, 너희는 새로 시도하기 위해 굽히지 않고 일어설 것인가? 만일 너희가 성공한다면, 물질적 타성의 족쇄를 부수려는 긴 투쟁, 영 실존의 자유를 달성하려는 긴 투쟁에 두루, 모든 노력에서 잘-균형 잡힌 자세—안정되고 영성화된 태도—를 유지할 것인가?

48:6.36 (555.4) 필사자들이 그러하듯 마찬가지로, 이들 천사들도 많은 실망들에 대한 아버지로 있어 왔고, 그리하여 그들은 언젠가는 너희를 가장 실망시키는 실망들이 너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어왔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언젠가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그것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기회에서의 열매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씨앗의 죽음,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희망들의 죽음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너희는, 처음에는, 다른 개인성들에 관여하고 있는 개인적 계획을 줄임에 따라서, 그런 다음에 너희가 너희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 온 때에 있는 너희의 몫을 너희가 받아들임에 따라서, 슬픔과 실망을 두루 거치면서 고통이 점점 적어지는 것을 그들로부터 배우게 될 것이다.

48:6.37 (555.5) 너희는 너희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취급함으로써 너희의 짐이 증가하고 그리고 성공으로 여길만한 것들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너희 지위 구체—이 세상이거나 또는 다음 세상이거나—에서의 일보다 우선으로 취급할 수 없다. 더욱 높은 다음 구체를 위해 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너희가 그 안에서 실재로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일의 중요함과 동등한 것은 없다. 그러나 비록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도, 자아는 아니다. 네가 중요하다고 느낄 때는, 너는 자기 존엄성의 마모와 그리고 찢김에 대하여 에너지를 쓰며 잃어버리게 되므로, 그래서 일을 행하기 위한 에너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된다. 일-중요함이 아니라, 자아-중요함이 미성숙한 창조체를 소진시키는 것이다; 소진하는 것은 자아 요소이지, 성취하려는 노력이 아니다. 너희가 만약에 자아-중요함으로 되어가지

않는다면 너희는 중요한 일을 행할 수 있다; 만일 너희가 네 자신에게서 떠나서 나가면 여러 일들을 마치 하나처럼 쉽게 행할 수 있다. 다양성은 여유로운 평안을 준다; 단조로움이 마모시키고 소진시키는 바로 그것이다. 매일 매일이 비슷하다—올바른 생명이든지 아니면 남은 선택인 죽음이든지 이다.

제 7 장. 모론시아 모타

^{48:7.1 (556.1)} 모론시아 모타의 더 낮은 국면들은 인간 철학의 더 높은 차원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맨션세계에서는 병렬식 기법에 의해 덜 발전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실천 관행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 줄은 모타 의미들 중에서 더 단순한 개념들을 제시하고, 다른 줄에서는 필사 철학과 비슷한 서술들로 되어 있다.

^{48:7.2 (556.2)}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사타니아의 첫 번째 맨션세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나는 이 교습 방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나는 학습의 모타 내용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모타의 의의(意義)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그들의 초기의 노력에서 이 모론시아 강사가 이용하고 있었던 이 새로운 맨션세계 체류자들을 돕도록 계획된

예증 자료인 인간 철학의 28개 서술들을 기록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인간 철학의 이 예증들은 다음과 같았다:

48:7.3 (556.3) 1. 특별화된 숨씨를 들어내는 것이 영적 능력의 소유를 가르키지 않는다. 영리함이 참된 성격을 대신하지 않는다.

48:7.4 (556.4) 2. 자신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라 당당히 사는 개인들은 거의 없다. 이유 없는 두려움이야말로 진화하는 필사자 혼 위에 실천 관행이 된 지능적 속임수의 주인이다.

48:7.5 (556.5) 3. 선천적인 수용력은 초과될 수 없다; 한 되는 결코 한 말을 담을 수 없다. 영 개념이 물질적인 기억 틀 속으로 기계적으로 들어가 기세를 끼치게 할 수가 없다.

48:7.6 (556.6) 4. 본성과 은혜의 병합된 사명활동들에 의해 확정된, 마치 개인성 신용한도의 총액과 같은, 그러한 어떤 것을 과감히 꺼내 써보려는 필사자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가난해진 혼들은 진실로 부유한데도,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를 거부한다.

48:7.7 (556.7) 5. 어려움은 평범함에 도전하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오직 지고자들의 참된 자녀들을 기운 돋게 할 뿐이다.

48:7.8 (556.8) 6. 남용함이 없이 특권을 즐기는 것, 방종함이 없이 해방을 가지는 것, 힘을 소유하면서도 자아-웅대함에 사용하기를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것이 높은 문명의 표식들이다.

48:7.9 (556.9) 7. 맹목적이고 우연한 현상들은 우주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은 자신의 진리의 빛을 따라서 행하기를 거부하는 더 낮은 존재를 돕지도 않는다.

48:7.10 (556.10) 8. 노력이 항상 기쁨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지능적 노력 없이는 행복이 없다.

48:7.11 (556.11) 9. 행동은 힘을 성취한다; 온건함은 마침내 매력을 일으킨다.

48:7.12 (556.12) 10. 정의(正義)는 진리의 조화로운 화음을 내며, 멜로디는 심지어 무한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우주 전체에 진동한다.

48:7.13 (556.13) 11. 약한 자는 결단에 탐닉하지만 강한 자는 행동한다. 인생은 단지 하루의 일이다—그것을 잘하라. 행동은 우리들의 것이다; 귀결은 하느님의 것이다.

48:7.14 (556.14) 12. 조화우주에서의 가장 큰 고통은 전혀 고통 받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필사자들은 오직 시련을 체험함으로써 지혜를 배운다.

48:7.15 (556.15) 13. 별들은 불이 밝혀진 그리고 황홀한 산꼭대기에서가 아니라 체험적 심연의 고독한 고립에서 가장 잘 식별된다.

48:7.16 (556.16) 14. 진리에 대하여 너희 연관-동료들의 욕망을 자극하라; 요청을 받았을 때에만 충고하라.

48:7.17 (557.1) 15. 허식은 지혜롭게 보이려는 무지한 자들의 우스꽝스러운 노력이요, 부자처럼 보이려는 메마른 혼의 시도이다.

48:7.18 (557.2) 16. 너희는 영적인 진리를 느낌으로 느끼듯이 체험하기 전에는 그것을 감지할 수 없으며, 많은 진리들은 역경을 당해보지 않고는 실제로 느낄 수 없다.

48:7.19 (557.3) 17. 야망은 그것이 충분히 사회화되기 전에는 위험하다. 너희는 너희 행동이 너희를 그것에 대해 가치 있게 만들기 전에는 어떤 덕목도 참되게 소유할 수 없다.

48:7.20 (557.4) 18. 성급함은 일종의 영 독약이다; 분노는 벌집에 던져진 돌과 같다.

48:7.21 (557.5) 19. 근심을 버려야만 한다. 가장 참기 어려운 실망은 그것들이 결코 오지 않는 것이다.

48:7.22 (557.6) 20. 일상적 실존의 평범하고 무미건조한 이야기 속에서 시인만이 시를 식별할 수 있다.

48:7.23 (557.7) 21. 모든 예술의 높은 임무는, 그것의 환상에 의해서, 더 높은 우주 실체를 예시하는 것이고, 시간에서의 감정을 영원에서의 생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48:7.24 (557.8) 22. 진화하는 혼은 그것이 행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행하려고 분투하는 것에 의해 신성하게 된다.

48:7.25 (557.9) 23. 죽음은 지적 소유에 또는 영적 자질에 아무 것도 더해주지 않지만, 체험적 지위에 생존에 대한 의식을 더해준다.

48:7.26 (557.10) 24. 영원의 운명은 하루하루 삶의 성취에 의해 순간마다 결정된다. 오늘의 행동들은 내일의 운명이다.

48:7.27 (557.11) 25. 위대함은 힘을 많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힘을 지혜롭고 신성하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48:7.28 (557.12) 26. 지식은 오직 공유하는 것에 의해 소유된다; 그것은 지혜에 의해 보호되고 사랑에 의해 사회화된다.

48:7.29 (557.13) 27. 진보는 개별존재성의 발전을 요구 한다; 진부함은 표준화되어서 그 안에서 영속하기를 추구한다.

48:7.30 (557.14) 28. 어떤 명제에서도 그것의 논쟁적인 방어는 담겨있는 진리에 반비례한다.

48:7.31 (557.15) 그러한 것은 첫 번째 맨션세계의 초보자들의 작업인 반면 이후 세계들에 있는 더욱 진보된 학생들은 조화우주 통찰력과 모론시아 모타를 터득한다.

제 8 장. 모론시아 진보자들

48:8.1 (557.16) 초우주 생애에서 영 지위의 달성을 향해 맨션세계들로부터 졸업하는 순간부터,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모론시아 진보자라고 불려진다. 이 놀라운 경계지대 삶을 통과하는 너희의 여행은 잊을 수 없는 체험, 매력 있는 추억이 될 것이다. 그것은 상승자들이 시간의 목표—파라다이스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를 성취함에 따라 이루는, 결국 생겨나는 창조체 완전의 달성과 영 생명에 이르는 진화적인 입구이다.

48:8.2 (557.17) 이 모든 모론시아와 그리고 뒤이어지는 필사자 진보에서의 영 기획, 상승하는 창조체들을 위한 정교한 이 우주 훈련 학교에는 확실하고도 신성한 목적이 있다. 대우주의 운영과 관리-행정에 관한 내용들을 숙달하도록 등급적으로 배열된 기회를 시간의 창조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창조자들의 계획이며, 이 긴 훈련 과정은 생존된 필사자가 점차적으로 올라가게 함으로써 그리고 그 상승의 모든 과정에 실재적인 참여로 가장 잘 수행된다.

48:8.3 (558.1) 필사자-생존 계획은 실천적이고 유용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너희가 겨우 끝없는 축복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도록 생존되는, 단지 그러한 것을 위해 이 모든 신성한 수고와 애써야 하는 훈련을 받는 자가 아니다. 현재 우주 시대의 수평선 너머에 감추어진 초월적 봉사의 목표가

있다. 만일 하느님들이 너희를 하나의 긴 그리고 영원한 기쁨의 여행을 위해서만 계획했다면, 그들은 분명히 전체 우주를 하나의 광대하고 복잡한 실천적 훈련 학교가 되도록 그렇게 거대하게 변화시키고, 천상 창조의 상당한 부분을 선생들과 강사들로 요청하고, 그 다음에는 체험적 훈련의 이 거대한 우주 학교를 통해 하나씩 너희를 선도하는 일에 수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필사자 진보 계획의 촉진은 조직된 현 우주의 주요 업무들 중의 하나인 것처럼 보이며, 창조된 지능체들의 수많은 계층들 대부분은 이 진보하는 완전 계획의 어떤 위상을 발전시키는 일에 직접적으로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든지 관여되어 있다.

48:8.4 (558.2) 필사자 사람으로부터 신(神) 포옹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실존의 상승 단계를 지나감에 있어서, 너희는 현재 우주 시대의 한계들 속에서 완전해진 창조체 실존의 모든 가능한 위상과 무대의 바로 그 삶을 실재적으로 산다. 필사자 사람으로부터 파라다이스에 이르기까지 최종자는 현재 있을 수 있는—지능체의 살아있는 계층들, 완전해진 유한 창조 존재들에게 현재 가능한 모든 것을 에워싸는, 전체를 포옹한다. 만일 파라다이스 최종자의 미래 운명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우주들에서의 봉사라면, 이 새로운 그리고 미래의 창조계에서는, 필사자 최종자가 동물로부터 천사로 그리고 천사로부터 영으로 그리고 영으로부터 하느님께로 그들 오랜 세월의 진보 단계의 하나로서, 그들의 상승 훈련의 일부분으로 여러 세계에서 살았던 그러한 삶과는,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갈 그러한 경험적 존재로 창조되는 계층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48:8.5 (558.3) [네바돈의 천사장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49 편 거주되는 세계

49:0.1 (559.1) 필사자-거주하는 모든 세계들은 기원과 본성에서 진화적이다. 이들 구체들은 시간과 공간의 필사 종족들의 번식 장소, 진화의 요람이다. 상승하는 삶의 각 단위는 바로 앞에 실존하는 무대를 위한 진실 그대로의 훈련 학교이며, 이것은 사람의 진보적 파라다이스 상승의 모든 단계에서 참말이다; 이러한 진실은 진화하는 행성에서 최초의 필사자 체험의 바로 그러한 참말처럼,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초우주의 권역으로 그리고 처음-단계 영 실존 달성으로 가려는 그들의 전환 바로 직전까지는 다니지

않는 학교인, 멜기세덱들의 최종 우주 본부 학교까지도 참말이다.

49:0.2 (559.2) 거주되는 모든 세계들은 기본적으로 천상의 관리-행정을 위해 지역체계들로 집단화되며, 이들 지역체계 각각은 약 1,000개의 진화 세계들로 제한되어 있다. 이 제한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선포에 의한 것이며, 이것은 그 위에서 생존된 지위의 필사자들이 살고 있는 실재적인 진화적 행성들에도 관계된다. 최종적으로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한 세계들과 생명 개발의 인간-이전(以前)족 단계에 있는 행성들은 이 집단에 계산되지 않는다.

49:0.3 (559.3) 사타니아 자체는 미완결 체계이며, 오직 619개의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만이 포함한다. 그러한 행성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로서, 의지적 창조체들이 거주하는 세계들로서 그들이 등록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진다. 그래서 유란시아에는 사타니아의 606번이 주어졌다, 긴 생명 진화의 과정이 인간 존재들이 출현으로 최고조에 달한 이 지역체계에서 606번째를 의미한다. 생명-자질부여 단계에 가까운 36개의 거주민이 살지 않는 행성들이 있으며, 그 중 몇 개는 생명운반자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수백만 년 내에 생명 이식을 위해 준비가 될 정도로 진화하고 있는 200개가량의 구체들이 있다.

49:0.4 (559.4) 모든 행성들이 필사 생명을 품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축 회전 비율이 높은 작은 것들은 생명 거주지로 전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중앙의 태양 주위를 도는 사타니아 행성들의 물리적 체계들 중 어떤 것들은 거주지가 되기에 너무 크다. 그것들의 거대한 질량은 압박 중력을 가한다. 수많은 이들 구체들 중 많은 것들은 때로 6개 또는 그 이상의 위성들을 가지며, 이 달들은 유란시아의 그것과 크기 면에서 매우 비슷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들은 거주지로 가장 적합하다.

49:0.5 (559.5) 사타니아에서 거주민이 사는 가장 오래된 세계, 1번 세계는 아노바인데, 거대한 암흑 행성 주변을 도는 그러나 근처에 있는 세 개의 태양의 다른 빛에 노출된 44개 위성들 중의 하나이다. 아노바는 진보적 문명의 발전된 단계에 있다.

제 1 장. 행성 생명

49:1.1 (559.6)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은 점진적으로 발달 한다; 생명의 진보—지상 또는 천상의—는 독단적이지도 않고 마술적이지도 않다. 조화우주의 진화는 항상 납득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49:1.2 (560.1) 물질적 생명의 생물학적 단위는 원형질 세포, 화학적, 전기적, 그리고 다른 기본 에너지들의 교제적인 관계적-연합이다. 화학적 공식들은 각 체계마다 다르며, 살아있는 세포 번식의 기법은 각 지역우주에서 약간 다르지만, 항상 생명운반자들이 물질적 생명의 원시적 반응들을 발생시키는 살아있는 촉매자들이다; 그들은 살아있는 물질의 에너지 순환회로들의 선동자들이다.

49:1.3 (560.2) 지역체계의 모든 세계들은 명백한 물리적 친족관계를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행성은 그 자체의 생명 등급을 갖는데, 어떤 두 세계도 식물과 동물 자질에 있어서 정확하게 똑같지 않다. 체계 생명 유형들에 있어서의 이 행성적인 변화들은 생명운반자들의 결정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 존재들은 변덕스럽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는다; 우주들은 법과 질서에 따라서

수행된다. 네바돈의 법칙은 구원자별의 신성한 명령들이며, 사타니아에 있는 생명의 진화적 계층은 네바돈의 진화적 원형들과 일치된다.

49:1.4 (560.3) 진화는 인간 발달의 법칙이지만, 그 과정 자체는 다른 세계들에서 매우 달라진다. 생명은 때로 하나의 중심지에서 시작되며, 때로는 유란시아의 경우처럼 세 곳에서 시작된다. 대기가 있는 세계들에서 그것은 대개 해양에서 기원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행성의 물리적 상태에 크게 의존한다. 생명운반자들은 생명 개시에 대한 그들의 기능에 있어서 많은 재량권을 갖는다.

49:1.5 (560.4) 행성 생명의 발전에 있어서 식물형태는 항상 동물 형태를 앞서며 동물 원형들이 달라지기 전에 거의 충분히 발전된다. 모든 동물 유형들은 살아있는 것들의 앞선 식물계의 기본 원형들로부터 발전된다; 그것들은 따로 갈라져서 조직화되지 않는다.

49:1.6 (560.5) 생명(生命) 진화의 초기 단계들은 너희의 지금-현재 관점들과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다. 필사자 사람은 진화적인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공간의 구체들에서 행성 생명계획의 전체를 결정하는 정확한 체계, 우주적인

법칙이 존재한다, 시간과 종족의 많은 숫자의 생산은 통제하는 영향들이 아니다. 쥐는 코끼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재생산하지만, 코끼리가 쥐보다 더 빠르게 진화한다.

49:1.7 (560.6) 행성 진화의 과정은 질서가 있고 통제된다. 더 낮은 집단들로부터 더 높은 유기체들로의 발달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때로는 진화 발달이 선택된 종족에 포함된 생명 원형질의 어떤 유익한 계통들의 파괴에 의해 일시적으로 지연되기도 한다. 인간 유전의 우월한 단일 혈통이 유실됨으로써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데에 여러 세대들이 요구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살아있는 원형질의 이 선택되고 우월한 혈통들은 그것들이 일단 출현하였을 때에는 세심하게 그리고 지능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거주민이 사는 대부분의 세계들에서 생명의 우월한 이 잠재들은 유란시아에서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된다.

제 2 장. 행성의 물리적 유형

49:2.1 (560.7) 각 체계에는 표준이 되고 기본이 되는 식물과 동물 원형들이 있다. 그러나 생명운반자들은 수많은

공간세계들에서 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물질적 조건들에
맞도록 이들 기본 원형틀들을 수정할 필요에 자주
직면한다. 그들은 필사 창조체의 일반화 된 체계 유형을
육성하지만, 일곱 가지 뚜렷한 물리적 유형들이 있고 이
일곱 가지 현저한 차이들의 사소한 변화들은 많이 있다:

49:2.2 (561.1) 1. 대기 유형들.

49:2.3 (561.2) 2. 원소 유형들.

49:2.4 (561.3) 3. 중력 유형들.

49:2.5 (561.4) 4. 온도 유형들.

49:2.6 (561.5) 5. 전기 유형들.

49:2.7 (561.6) 6. 에너지화 유형들.

49:2.8 (561.7) 7. 무명의 유형들.

49:2.9 (561.8) 사타니아 체계는 어떤 것들은 매우 빈약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유형들과 수많은 중간
집단들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49:2.10 (561.9) 1. 대기 유형들. 필사자의 거주 세계들의 물리적 차이는 주로 대기의 본질에 의해 결정된다; 생명의 행성 차이에 기여하는 다른 영향들은 비교적 사소하다.

49:2.11 (561.10) 유란시아의 현재 대기 상태는 숨을 쉬는 형태의 사람을 유지시키기에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 인간 유형은 너무나 변형되어서 초(超)대기와 하위(下位)대기를 갖는 행성들 둘 모두에서 살 수 있다. 그러한 변형들은 동물 생명에게도 확장되었는데, 거주민이 사는 다양한 구체들마다 크게 다르다. 부차적 그리고 초(超)대기 세계들 모두에서 동물 계층들의 매우 큰 변형들이 있다.

49:2.12 (561.11) 사타니아에 있는 대기 유형들 중에서 약 2.5%는 하위호흡자이고, 약 5%는 초(超)호흡자이며, 91% 이상은 중간호흡자인데, 전체는 사타니아 세계들 중 98.5%에 달한다.

49:2.13 (561.12) 유란시아 인종들과 같은 존재들은 중간 호흡자로 분류된다; 너희는 필사자 실존의 평균적 또는 전형적 호흡 계층을 대표한다. 만약에 너희 근처 이웃인 금성(金星)의 그것과 비슷한 대기를 갖는 행성에 지능 창조체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초(超)호흡자 집단에 포함될 것이며,

반면에 너희 바깥 이웃인 화성(火星)의 그것처럼 희박한 대기를 갖는 행성에 거주한다면, 하위 호흡자라고 불릴 것이다.

49:2.14 (561.13) 만일 필사자들이 너희 달과 같은 대기가 없는 행성에 거주하게 된다면, 그들은 비(非)호흡자의 분리된 계층에 속할 것이다. 이 유형은 행성 환경에 대해 급진적인 또는 극단적인 조절을 나타내며 별도로 고려된다. 비(非)호흡자들은 사타니아 세계들 중에서 나머지 1.5%에 달한다.

49:2.15 (561.14) 2. 원소 유형들. 이들 차이들은 물과 공기와 땅에 대한 필사자들의 관계와 함께 취급되어야만 하며, 그들이 이 거주지들과 관련 된 것처럼 지능적 생명의 네 가지 다른 종족들이 있다. 유란시아 종족들은 땅 계층이다.

49:2.16 (561.15) 어떤 세계들의 초기 시대들 동안 우세하였던 환경을 관찰하는 일은 너희에게 매우 불가능하다. 이 별난 조건들은 진화하는 동물 생명으로 하여금 쾌적한 땅과-대기 환경을 매우 초기에 제공한 그 행성들 위에서 보다 더 긴 기간 동안 그것의 해양 온상 거주지에 남아 있도록 하였다. 거꾸로 말하면, 초(超)호흡자들의 어떤

세계들에서는, 행성이 너무 크지 않을 때, 대기 중의 통행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필사자 유형을 준비하는 것이 때로는 편리하다. 이 공중 항해자들은 때로 물 집단과 땅 집단 사이에 존재하며, 그들은 항상 얼마 동안 땅 위에서 사는데, 언젠가는 결국에는 땅 거주자들로 진화한다. 그러나 어떤 세계들에서는 그들이 땅-유형의 존재들이 된 후에도 여러 시대들 동안 계속 날아다닌다.

49:2.17 (562.1) 어떤 경우에는 공중과 나무 꼭대기들에서,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보호된 열대의 만(灣)에 있는 얇은 물속에서,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색다른 구체들의 여명기 종족들의 이 해양 동산의 바닥과 측면과 해안에서 모양을 갖추는 인간 존재들의 원시 종족의 초기 문명을 관측하는 일은 놀라운 일인 동시에 재미나는 일이다. 심지어는 유란시아에서도 원시인이 자신을 보호하고 나무 위에서 사는 그들의 초기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나무 꼭대기에서 대부분을 삶으로써 그들의 원시적 문명을 발전시키는 동안 긴 세월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너희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포유류(박쥐 계통)의 집단과 그리고 해양에서 서식하면서 포유류 계층에 속하는 물개와 고래와 같은 집단을 아직도 갖고 있다.

49:2.18 (562.2) 사타니아의 기본적 유형들에서 7%는 물 형태, 10%는 공기, 70%는 땅 형태이며 13%는 땅-공기 병합 형태들이다. 그러나 초기 지능 창조체들의 이 변형들은 인간 물고기들도 아니고 인간 새들도 아니다. 그들은 인간 및 인간-이전 유형들인데 초(超)물고기들도 아니고 영화롭게 된 새들도 아니지만 명백하게 필사자이다.

49:2.19 (562.3) 3. 중력 유형들. 창조적 설계의 변형에 의해서, 지능존재들은 유란시아보다 크고 작은 구체들 모두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형성되었으며, 그리하여 이상적인 크기와 밀도를 갖지 않는 그 행성들의 중력에 어느 정도 순응되었다.

49:2.20 (562.4) 필사자들의 다양한 행성 유형들은 키가 다양하며, 네바돈에서의 평균은 7피트에서 약간 모자란다. 비교적 큰 세계들 중 일부에는 키가 2.5피트에 불과한 존재들이 산다. 필사자의 키는 여기서부터 평균-크기 행성들의 평균키에서 더 적은 크기의 거주민이 사는 구체들에서의 약 10피트에 이른다. 사타니아에서는 키가 4피트 이하인 종족이 하나밖에 없다. 사타니아의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

중 20%에는 더 큰 행성과 더 작은 행성을 차지하는 변형된 중력 유형들의 필사자들이 산다.

49:2.21 (562.5) 4. 온도 유형들. 유란시아 종족들의 생명 범위보다 훨씬 높고 훨씬 낮은 둘 모두의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들을 창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들을 열-규제 기능구조를 참고하여 분류할 때 다섯 개의 다른 계층의 존재들이 있다. 이 척도로 볼 때 유란시아 종족들은 3번째이다. 사타니아 세계들 중 30%에는 변형된 온도 유형들이 산다. 유란시아인들과 비교할 때, 12%는 비교적 높은 범위들에 해당하고, 중간-온도 집단에서 활동하는 18%는 비교적 낮은 범위에 해당한다.

49:2.22 (562.6) 5. 전기 유형들. 세계들의 전기적, 자기적, 그리고 전자적 습성은 크게 다양하다. 구체들의 서로 다른 에너지를 견디도록 다양하게 형성된 필사자 생명의 10가지 설계들이 있다. 이 10가지 종류들은 또한 정상적인 태양광의 화학적 광선에 대해 약간 다른 방법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이 작은 물리적 차이들은 어떤 면으로도 지적 또는 영적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9:2.23 (562.7) 필사자 생명의 전기적 집단들 중에서, 거의 23%는 실존에서의 유란시아 유형인 4번 부류에 속한다. 이 유형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 된다: 전체적인 비율로, 1번 1퍼센트; 2번 2퍼센트; 3번 5퍼센트; 4번 23퍼센트; 5번 27퍼센트; 6번 24퍼센트; 7번 8퍼센트; 8번 5퍼센트; 9번 3퍼센트; 10번 2퍼센트이다.

49:2.24 (563.1) 6. 에너지화 유형들. 모든 세계들이 에너지를 받는 방식에 있어서 똑같은 것은 아니다. 거주민이 사는 모든 세계들이 현재 유란시아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기체들의 호흡 교환에 맞는 대기 해양을 소유하지는 않는다. 많은 행성들의 초기 및 후기 단계들에서, 너희의 현재 계층의 존재들이 실존할 수 없었다; 행성의 호흡 요소들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을 때, 그러나 지능 생명에 필수적인 다른 모든 조건들이 적당할 때, 생명운반자들은 그러한 세계들에 필사자 실존의 변형된 형태, 주(主)물리통제자들의 직접적 힘 변형과 빛-에너지 수단에 의해 직접적으로 그들의 생명-진행 교환들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존재를 자주 형성한다.

49:2.25 (563.2) 동물적 그리고 필사자 영양 섭취에는 여섯 개의 다른 유형들이 있다: 하위호흡자들은 첫 번째 유형의 영양 섭취를 택하고, 해양 거주자들은 두 번째, 중간호흡자들은 유란시아에서처럼 세 번째를 택한다. 초(超)호흡자들은 네 번째 유형의 에너지 섭취를 택하는 반면, 비(非)호흡자들은 다섯 번째 계층의 영양 섭취와 에너지를 활용한다. 에너지화의 여섯 번째 기법은 중도(中途) 창조체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다.

49:2.26 (563.3) 7. 무명(無名)의 유형들. 행성 생명에는 수많은 다른 물리적 다양성들이 있지만, 이 차이들 모두는 전적으로 해부학적 변형과 생리적 차이 그리고 전기화학적 조절의 문제이다. 그러한 특징들은 지적 또는 영적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다.

제 3 장. 비(非)호흡자들의 세계

49:3.1 (563.4) 거주되는 세계들 대부분에는 숨을 쉬는 유형의 지능 존재들이 산다. 그러나 또한 거기에는 대기가 희박하거나 없는 세계들에서 살 수 있는 필사자 계층들도 있다. 오르본톤의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 중에는 이 유형이 7퍼센트 미만이다. 네바돈의 경우 이 비율은 3퍼센트

미만이다. 사타니아 전체에는 그러한 세계들이 9개밖에 없다.

49:3.2 (563.5) 사타니아의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 비(非)호흡자 유형이 그토록 매우 적은 이유는 놀라시아텍의 비교적 최근에 조직화 된 이 부분이 아직도 유성의 공간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보호 마찰 대기가 없는 세계들은 이 떠돌이 에 의해 끊임없이 충격을 받기 때문이다. 어떤 혜성들은 유성 무리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대개 그것들은 물질의 비교적 작은 몸체들로 붕괴된다.

49:3.3 (563.6) 수많은 운석들이 거의 초당 200마일의 속도로 매일같이 유란시아의 대기 속으로 들어온다. 비(非)호흡 세계들에서는 진보된 종족들이 그 운석들을 태워버리거나 회피시키도록 작동하는 전기적 장치들을 만듦으로써 운석에 의한 피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 그들이 보호된 이 지역들을 벗어나서 모험을 할 때 그들은 큰 위험에 직면한다. 이 세계들은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자연의 위험한 전기적 폭풍의 지배를 받기도 한다. 엄청난 에너지 동요가 있는 그러한

시기 동안 거주민들은 방어 절연체의 특별한 구조물들
속에 피해야 한다.

49:3.4 (563.7) 비(非)호흡자들의 세계들의 생명은
유란시아에서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비(非)호흡자들은 유란시아 종족들이 하는 것처럼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지 않는다. 신경 체계의 반응들과 열-규제
기능구조 그리고 특별한 이 종족들의 신진대사는
유란시아 필사자들의 그러한 기능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번식 작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삶의 활동이
다르며, 출산 방식조차도 어느 정도 다르다.

49:3.5 (564.1) 비(非)호흡 세계들의 동물 종족들은 대기가 있는
행성들에서 발견되는 그것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생명의 비(非)호흡 계획은 대기가 있는 세계에서의 실존
기법과 다르며; 심지어는 생존에 있어서도, 영 융합
후보자들로서, 그들 종족들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들은 삶을 즐기며 대기가 있는 세계들에서 사는
필사자들에 의해 체험되는 것과 동일한 상대적인 시련과
기쁨을 가지고 영역의 활동들을 수행한다. 마음과

특성에서 비(非)호흡자들은 다른 필사자 유형들과 다르지 않다.

49:3.6 (564.2) 너희는 이 유형의 필사자의 행성 행위에 더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존재들의 종족은 유란시아에 아주 근접된 구체에서 거주하기 때문이다.

제 4 장. 진화하는 의지 창조체

49:4.1 (564.3) 다른 세계들의 필사자들 사이에는 큰 차이들이 있으며, 같은 지적 그리고 육체적 유형에 속한 것들 중에서도, 의지 존엄성의 모든 필사자들은 직립, 양족(兩足) 동물들이다.

49:4.2 (564.4) 여섯 가지 기본적인 진화 종족들이 있다: 셋은 1차적이고—적색, 황색, 청색; 셋은 2차적이다—주황색, 녹색, 남색. 거주민이 사는 대부분의 세계들에는 이 종족들 모두가 있지만, 세 개의 뇌를 가진 행성들 대부분은 세 개의 1차 유형들만을 포함한다. 어떤 지역체계들에도 역시 이 세 종족들만 있다.

49:4.3 (564.5) 인간 존재들의 평균적인 특별 육체-감각 자질은 12가지이지만, 3개의 뇌를 가진 필사자들의 특별 감각들은

한 개의 뇌와 두 개의 뇌를 가진 유형들보다 약간 더 확장되어 있다; 그들은 유란시아 종족들보다 상당히 많이 보며 들을 수 있다.

49:4.4 (564.6) 어린아이들이 대개 하나씩 태어나고, 여러 명이 태어나는 일은 예외적이며, 가족생활은 모든 유형의 행성들에서 상당히 일정하다. 성(性) 동등성이 진보된 모든 세계들에 보급되어 있다; 남성과 여성은 마음 자질과 영적 지위에 있어서 동일하다. 우리는 행성을 하나의 성이 다른 성을 압제하기를 추구하는 한, 야만상태로부터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창조체 체험의 이러한 특징은 물질아들과 딸의 도착 이후에 항상 크게 개선된다.

49:4.5 (564.7) 계절들과 온도 변화는 태양이 비추어지고 태양의 열을 받는 모든 행성들에서 발생된다. 농업은 대기를 갖는 모든 세계들에서 보편적이다; 땅을 경작하는 일은 그러한 모든 행성들의 발전된 종족들에게 공통적인 하나의 일이다.

49:4.6 (564.8) 유란시아에서 너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만큼 광대하지는 않더라도, 필사자들은 모두 그들의 초기 시대에 극히 미세한 적들과 동일한 일반적

투쟁을 벌인다. 생명 기간은 원시적인 세계들에서의 25년으로부터 더욱 진보되고 오래된 구체들에서의 500년에 이르기까지 행성들마다 다르다.

49:4.7 (564.9) 인간 존재들은 모두 집단생활을 하는데 부족한 동시에 인종적이다. 이들 집단적 격리는 그들의 기원과 체질에서 선천적이다. 그러한 경향들은 오직 진보된 문명에 의해서만 그리고 점진적인 영성화에 의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통치상의 문제들은 행성들의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신성한 아들들의 연속적인 체류에 의해 영향을 받은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

49:4.8 (564.10) 마음은 무한한 영으로부터 증여이며 다양한 환경들에서 매우 동일하게 기능한다. 지역체계들에 있는 의지 창조체들의 육체적 본성들을 특징짓는 특정한 구조적 및 화학적 차이들과는 상관없이, 필사자들의 마음은 동족이다. 개인적인 또는 육체적인 행성의 차이들과는 상관없이, 이 다양한 계층의 필사자들 모두의 정신적 삶은 매우 비슷하며, 죽음 직후의 그들의 생애들은 매우 동일하다.

49:4.9 (565.1) 그러나 불멸의 영이 없는 필사자 마음은 생존될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은 필멸이다; 오직 증여된 영만이 불멸이다. 생존은 조절자의 사명활동에 의한 영성화—불멸 혼의 탄생과 진화—되는 것에 의존 한다; 적어도, 물질적 마음의 영적 변형에 영향을 주는 조절자의 사명활동에 대한 반목을 발전시키지는 않아야 한다.

제 5 장. 필사자들의 행성 계통

49:5.1 (565.2) 필사자들의 행성 계통들에 대해 적당하게 묘사하는 일은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인데 왜냐하면 너희는 그것들에 대해 너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이며, 변화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아무튼, 필사 창조체들은 여러 관점들에서 연구될 수 있으며,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49:5.2 (565.3) 1. 행성 환경에의 조절.

49:5.3 (565.4) 2. 뇌-유형 계통들.

49:5.4 (565.5) 3. 영-수용 계통들.

49:5.5 (565.6) 4. 행성-필사자 신(新)시대들.

49:5.6 (565.7) 5. 창조체-친족관계들.

49:5.7 (565.8) 6. 조절자-융합 계통들.

49:5.8 (565.9) 7. 현세 탈출의 기법들.

49:5.9 (565.10) 일곱 초우주들의 거주민이 사는 구체들에는 진화적인 창조체 삶의 이 일곱 가지 일반화 된 부류들 각각의 어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범주들로 동시에 분류되는 필사자들이 산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 분류들도 아(亞)중간자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뿐만 아니라 지능적 생명의 어떤 다른 형태들을 위한 규정들이 없다.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는, 그것들이 이 글에서 제시되어온 바와 같이, 진화적인 필사 창조체들이 살고 있지만, 거기에는 다른 생명 형태들도 있다.

49:5.10 (565.11) 1. 행성 환경에의 조절. 행성 환경에 대한 창조체 생명의 조절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은 일반적으로 세 집단, 정상적인 조절 집단, 급진적 조절 집단, 실험적 집단 등이 있다.

49:5.11 (565.12) 행성 상황들에 대한 정상적인 조절들은 그 전에 고려된 일반적인 물리적 원형틀들이 따른다.

비(非)호흡자들의 세계들은 급진적 또는 극단적 조절을 대표하지만, 다른 유형들 역시 이 집단에 포함된다. 실험적 세계들은 대개 전형적인 형태들에게 이상적으로 적응되었으며, 이러한 10진법 소수의 행성들에서는 생명운반자들이 표준 생명 설계들에서 유익한 변화들을 산출하려고 시도한다. 너희 세계가 실험적 행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타니아에 있는 그것의 자매가 되는 구체들과 현저하게 다르며; 유란시아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형태들 중 많은 것들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많은 평범한 종족들이 너희 행성에는 없다.

49:5.12 (565.13) 네바돈 우주에서, 생명-변형 세계들 전체가 일련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고 지정된 행정-관리자들에 의해 주목을 받고 있는 우주 관련자들의 특별 권역을 구성한다; 이 모든 실험적 세계들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사타니아에서 타바만시아라고 알려진 고참 최종자인 우주 지도자 무리단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열을 받는다.

49:5.13 (566.1) 2. 뇌-유형 계열들. 필사자들의 하나의 육체적 획일성은 뇌와 신경 체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

기능구조에는 세 가지 기본 조직들, 한 개-, 두 개-, 그리고 세 개의 뇌 유형이 있다: 유란시아인들은 두 개의 뇌 유형이다, 한 개의 뇌를 가진 필사자들보다 어느 정도 더 상상력이 풍부하고 모험을 좋아하며 철학적이지만 세 개의 뇌를 가진 계층들보다는 어느 정도 덜 영적이고 윤리적이며 신앙적이다. 이 뇌의 차이들이 인간-이전 동물 실존들을 특징짓기도 한다.

49:5.14 (566.2) 너희는 유란시아인 대뇌(大腦) 피질의 두개의-반구체 유형에서 유추하여 하나의 뇌를 가진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세 개의 뇌를 가진 계층들의 세 번째 뇌는 너희의 아래쪽 또는 발육이 부진한 뇌 형태가 진화한 것으로 가장 잘 이해된다, 그것은 좀 더 높은 일들을 위해 우월한 두개의 뇌들을 자유롭게 남겨둔 채 주로 육체적 활동들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지점까지 발전됐다: 하나는 지적인 기능들을 위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생각 조절자의 영적-대응 활동들을 위한 것이다.

49:5.15 (566.3) 한 개의 뇌를 가진 종족들의 현세적 달성들이 두 개의 뇌를 가진 계층들과 비교하여 약간 제한되어 있는 반면, 세 개의 뇌를 가진 집단의 비교적 오래된 행성들은

유란시아인들을 몹시 놀라게 할 만한 문명들을 나타내며, 그것은 비교로서 너희의 문명을 어느 정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기계적인 발달과 물질적인 문명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지적인 진보에서도, 두 개의 뇌를 가진 필사자 세계들은 세 개의 뇌를 가진 구체들과 같아질 수 있다. 그러나 더 높은 마음의 통제와 지적이고 영적인 상호보답의 발달 면에서 보면, 너희는 어느 정도 뒤떨어진다.

49:5.16 (566.4) 어느 세계 또는 세계들의 집단의 지적 진보 또는 영적 달성에 관한 그러한 모든 비교적인 평가들은 행성의 나이를 공정하게 고려해야만 하며; 많은, 매우 많은 부분이 나이, 생물학적 향상자들의 도움, 그리고 신성한 아들들의 다양한 계층들의 수반된 사명활동들에 의존된다.

49:5.17 (566.5) 세 개의 뇌를 가진 종족들이 한 개 또는 두 개의 뇌를 가진 계층들보다 약간 더 높은 행성 진화를 할 수 있는 반면, 그 모두는 같은 유형의 원형질을 소유하고 있으며 유란시아에서 인간 존재들이 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매우 비슷한 방법으로 행성 활동들을 수행한다. 이 세 유형의 필사자들은 지역체계들의 세계에 두루 퍼져 있다.

대부분의 경우들에 있어서 행성 환경들은, 다른 세계들 위에 이 다양한 계층의 필사자들을 계획하는 생명운반자들의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것은 그렇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생명운반자들의 특권이다.

49:5.18 (566.6) 이 세 계층들은 상승 생애에서 동일한 위치에 서 있다. 각각은 동일한 지적 발달 단계를 건너가야만 하며, 동일한 영적 진보 시험들을 완수해야만 한다. 서로 다른 이 세계들의 체계 관리-행정과 별자리 전반적-통제는 균일하게 차별을 받지 않는다; 심지어는 행성영주들의 체제도 동일하다.

49:5.19 (566.7) 3. 영-수용 계열들. 영 관련사들과 접촉하는 것에 관련된 마음 설계의 세 집단들이 있다. 이 분류는 필사자들의 하나-, 둘-, 그리고 세 개의 뇌를 가진 계층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분비선 화학작용을 말하는데, 더 특별하게는 뇌하수체 몸체들과 비교될 수 있는 특별한 분비선들의 조직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세계들의 종족들은 하나의 분비선을 갖고, 다른 세계들은 유란시아인들처럼 두 개를 갖는 반면, 또 다른

구체들의 종족들은 세 개의 독특한 이 몸체들을 갖는다. 선천적인 상상력과 영적 접수성은 서로 다른 이 화학적 자질에 의해 명확하게 영향을 받는다.

49:5.20 (566.8) 영-수용 유형들에서, 65퍼센트가, 유란시아 종족들과 같이, 두 번째 집단이다. 12퍼센트가 첫 번째 유형이며, 자연적으로 수용 능력이 떨어지는 반면, 23퍼센트는 현세의 삶 동안 영적으로 편향되어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들은 자연적인 죽음으로 끝나며; 이 모든 종족적 차이들은 오직 육신의 삶에만 관계된다.

49:5.21 (567.1) 4. 행성-필사자 신(新)시대들. 이 분류는 현세의 섭리시대가. 땅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그리고 천상의 사명활동을 받아들이는 그의 수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따라, 그러한 섭리시대가 연속되는 것임을 인정한다.

49:5.22 (567.2) 생명은 생명운반자에 의해 행성에서 시작되는데, 그들은 필사자 사람의 진화적 출현 이후 어느 정도까지 그것의 발전을 감시한다. 생명운반자들이 행성을 떠나기 전에, 그들은 영역의 통치자로서 행성영주를 마땅히 취임시킨다. 총만한 할당수의 하위 보조자들과 사명활동하는 조력자들이 이 통치자와 함께 거기에

도착하며, 산 자들과 죽은 자들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이 그의 도착과 함께 동시에 있게 된다.

49:5.23 (567.3) 인간 집단화의 창발과 함께, 이 행성영주는 인간 문명을 개시하기 위해 그리고 인간 사회를 초점화 시키기 위해 도착한다. 혼란된 너희세계는 행성영주들이 통치하는 초기 시대들의 표준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행성영주인 칼리가스티아가 체계 주권자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한 일이 유란시아에서의 그러한 관리-행정에 있어서 거의 초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의 행성은 그 이후로 계속 모진 비바람이 치는 길을 걸어 왔다.

49:5.24 (567.4) 정상적인 진화 세계에서는, 종족적 진보가 행성영주의 체제 동안 그것의 자연적인 생물학적 정점을 달성하며, 그 후 조금 있다가 체계 주권자가 물질아들과 딸을 행성으로 보낸다. 유입된 이 존재들은 생물학적 향상자들의 봉사를 수행하며; 유란시아에서의 그들의 불이행은 너희 행성 역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49:5.25 (567.5) 인간 종족의 지적 그리고 윤리적 진보가 진화적 발달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치안법관으로서의 임무를 띤 파라다이스의 아보날 아들이 거기로 오며; 그 후에

그러한 세계의 영적인 지위가 자연적인 달성의 한계에 도달할 때, 한 명의 파라다이스 증여 아들이 행성을 방문한다. 증여 아들의 주요 임무는 행성 지위를 수립하고, 행성 기능을 하도록 진리의 영을 양도하며, 그리하여 생각 조절자들의 우주적 도래에 영향을 준다.

49:5.26 (567.6) 여기에서 유란시아는 다시 빛나갔다: 너희 세계에서는 치안법관의 임무가 수행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보날 계층의 너희의 증여 아들도 없었다; 너희 행성은 주권자 아들인 네바돈의 미가엘의 필사자 고향 행성이 되는 현저한 명예를 누렸다.

49:5.27 (567.7) 신성한 아들관계의 연속적인 모든 계층들의 사명활동의 결과로서,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과 그곳들의 진보하는 종족들은 행성 진화의 절정에 다가가기 시작한다. 그러한 세계들은 이제 절정의 임무,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의 도착을 위해 성숙되었다. 교사 아들들의 이 신(新)시대는 최종적인 행성 시대—진화적 유토피아—빛과 생명의 시대를 향한 입구에 있다.

49:5.28 (567.8) 인간 존재들에 대한 이 분류는 뒤이어지는 글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을 것이다.

49:5.29 (567.9)

5. 창조체-친족관계 계열들. 행성들은 체계들과 별자리들 그리고 그 다음 계속 수직적으로 조직될 뿐만 아니라 우주 관리-행정은 유형과 계통 그리고 다른 관계들에 따라 수평적으로 집단화를 준비한다. 우주의 이런 측면의 관리-행정은, 다른 구체들에서 독립적으로 육성되어 온 친속 본성에서의 행동들의 조화-협동에 더욱 특별하게 관계한다. 우주 창조체들의 관련된 이 부류들은 오랜-체험을 가진 최종자에 의해 지배되는 높은 개인성들의 특별한 혼합 무리단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열을 받는다.

49:5.30 (568.1)

이들 친족관계 요소들은 모든 차원들에서 현시된다, 왜냐하면 유사 계열들이 비인간 개인성들뿐만 아니라 필사 창조체들 가운데에서도—심지어는 인간과 초인간 계층들 사이에서도—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능 존재들은 각각 일곱 개의 주된 부분들의 12개 대집단들에서 수직적으로 관계된다. 살아있는 존재들의 이 독특하게 관련된 집단들의 조화-협동은 최극존재의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어떤 기법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49:5.31 (568.2) 6. 조절자-융합 계열들. 융합 이전의 체험 동안 모든 필사자들의 영적인 분류 또는 집단화는 내주하는 신비 감시자에 대한 개인성 지위의 관계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 네바돈의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거의 90퍼센트가 조절자-융합될 필사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근접한 우주는 반이 약간 넘는 세계들이 영원한 융합을 위하여 조절자-내주되어질 후보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49:5.32 (568.3) 7. 지상-생애에서의 탈출 기법들. 개별 인간 생명이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 시작될 수 있는 길은 근본적으로 오직 하나밖에 없으며, 그것은 창조체 출산과 자연적 탄생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사람이 그의 지상에서의 지위를 탈출하고 파라다이스 상승자들의 안쪽을 향해 움직이는 흐름에 도달하는 기법은 많이 있다.

제 6 장. 지상-생애에서의 탈출

49:6.1 (568.4) 모든 다른 물리적 유형들과 필사자들의 행성 계통들은 생각 조절자들과 수호천사들 그리고 무한한 영의 다양한 계층의 메신저 무리들의 사명활동을 똑같이 누린다. 모두는 자연적인 죽음에서의 해방에 의해 육신의

족쇄로부터 똑같이 자유로워지며, 모두는 그 후로 영적 진화와 마음 진보의 모론시아 세계들을 향하여 똑같이 나아간다.

49:6.2 (568.5) 때로는, 행성의 권한들 또는 체계 통치자들의 동의에 따라, 잠자는 생존자들의 특별한 부활들이 수행된다. 그러한 부활들은 행성 시간으로 적어도 1,000년마다 이루어지는데, 그때 모두는 아니지만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특별한 이 부활들은 필사자 상승에 대한 지역우주계획에서 특별한 봉사를 위해 특별한 집단의 상승자들을 동원시킬 경우이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 부활들과 관련하여 실천적 이유들과 정서적인 관계적-연합들이 둘 모두 있다.

49:6.3 (568.6) 거주되는 세계의 초기 시대들에 두루, 특별한 그리고 1,000년마다의 부활들에서 많은 이들이 맨션구체들로 불림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행성 봉사의 신성한 아들의 출현과 연관된 새로운 섭리의 시작에서 재(再)개인성구현 된다.

49:6.4 (568.7)

1. 섭리시대에서 또는 집단 계층에서 생존되는 필사자. 최초의 조절자가 거주 세계에 처음으로 도착할 때 수호 세라핌천사 역시 자신들의 출현을 만들어낸다; 그들은 지상-생애에서의 탈출에 필수불가결하다. 잠자는 생존자들의 생명-소멸 기간에 두루 그들의 새롭게 진화된 영적 가치들과 영원한 실체들 그리고 불멸의 혼들은 개인적인 또는 집단적인 수호 세라핌천사에 의해 신성하게 보관된다.

49:6.5 (568.8)

잠자는 생존자들에게 배정된 집단 수호자들은 그들 세계에 심판 아들들이 도래하면서 항상 그들과 함께 기능한다. "그 아들이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또한 그들이 사방에서 그가 택한 자들을 함께 모을 것이다." 잠자는 필사자의 재(再)개인성구현에 배정된 각 세라핌천사와 함께, 되돌아온 조절자, 곧 육체를 입은 시절 동안 그의 안에 살았던 바로 그 동일한 불멸 아버지의 단편이 함께 활동하며, 그에 따라서 정체성이 복원되고 개인성이 부활된다. 그들의 주체들이 잠자는 동안, 기다리는 이 조절자들은 신성별에서 봉사 한다; 그들은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필사자에 결코 내주하지 않는다.

49:6.6 (569.1) 필사자 실존의 더 오래된 세계들이 이렇게 높이 발전되고 그리고 모론시아 삶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풀려난 인간 존재들의 멋진 영적 유형들을 보호하는 반면, 동물-기원 종족들의 초기 시대들은 조절자들과 융합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숙한 원시적 필사자들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이 필사자들을 다시 깨우는 일은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불멸의 영의 개별화된 부분과 함께 수호 세라핌천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49:6.7 (569.2) 그래서 행성 시대의 잠자는 생존자들은 섭리의 호출 명령으로 재(再)개인성구현 된다. 그러나 영역의 구원되지 못할 개인성들에 관해서는, 어떤 불멸의 영도 운명의 수호자들 집단과 함께 기능하도록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것은 창조체 실존의 중지를 이룬다. 너희가 갖고 있는 기록들 중 어떤 것들은 이 사건들이 필사자 죽음의 행성들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묘사해 왔지만, 그것들은 모두 맨션세계들에서 실제로 일어난다.

49:6.8 (569.3) 2. 개별적 상승 계층의 필사자들. 인간 존재들의 개별적 진보는 일곱 조화우주 순환계들에 대한 그들의 연속적 달성과 횡단(숙달)에 의해 측정된다. 필사 진보의

이 순환계들은 연관된 지적, 사회적, 영적, 그리고 조화우주-통찰력 가치들의 차원들이다. 일곱 번째 순환계에서 시작하면서, 필사자들은 첫 번째를 향해 분투하며, 세 번째를 달성한 모든 이들은 그들에게 배정된 개인적 운명의 수호자들을 즉시 갖는다. 이들 필사자들은 섭리적 또는 다른 심판들과는 무관하게 모론시아 삶에서 재(再)개인성구현 될 것이다.

49:6.9 (569.4) 진화하는 세계의 초기 시대들에 두루, 소수의 필사자들만이 세 번째 날에 심판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 많은 개인적인 운명의 수호자들이 발전하는 필사자들에게 배정되며, 그리하여 진화하는 이 창조체들의 점점 더 증가하는 숫자가 자연적인 죽음 이후 세 번째 날에 첫 번째 맨션세계에서 재(再)개인성구현 된다. 그러한 경우에 조절자의 귀환이 인간 혼의 깨어남을 의미하며, 진화 세계들에서 섭리의 끝에 한 묶음으로 호출이 이루어질 때와 아주 똑같이 죽은 자들의 재(再)개인성구현이다.

49:6.10 (569.5) 개별적인 상승자들의 세 집단들이 있다: 덜 진보된 자들은 시작되는 또는 첫 번째 맨션세계에

도착한다. 더 진보된 집단은 이전의 행성 진보에 따라 중간 맨션세계들 중 어느 곳에서 모론시아 생애를 갖게 될 것이다. 이 계층들의 가장 진보된 자들은 실제로 일곱 번째 맨션세계에서 그들의 모론시아 체험을 시작한다.

49:6.11 (569.6) 3. 상승의 보호관찰-의존 계층의 필사자. 조절자의 도착은 우주의 견지에서 정체성을 구성하며, 모든 내주되는 존재는 공의의 점호를 받는다. 그러나 진화 세계에서의 일시적인 삶은 불확실하며, 많은 사람들이 파라다이스 생애를 선택하기 전에 어려서 죽는다. 조절자가 내주하였던 그러한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은 가장 진보된 영적 지위의 부모를 따라가며, 그리하여 특별 부활에서 또는 정기적인 1,000년마다의 그리고 섭리의 점호시기에, 사흘 째 되는 날, 체계의 최종자 세계(보호관찰 유아원)로 간다.

49:6.12 (570.1) 생각 조절자를 소유하기에 너무 어렸을 때 죽은 아이들은 어느 한 부모가 맨션세계들에 도착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체계들의 최종자 세계에서 재(再)개인성구현 된다. 아이는 필사자로 탄생하면서 물리적 실존개체를 얻지만, 생존의 사실에서 본다면, 조절자가 없는 모든

아이들은 여전히 그들의 부모들에게 부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49:6.13 (570.2) 때가 되면 생각 조절자들이 이 어린이들에게 내주하기 위하여 오며, 반면에 생존의 보호관찰-의존 계층들의 두 집단들에 대한 세라핌천사 사명활동은 더욱 진보된 부모의 그것과 전반적으로 비슷하거나 또는 한 쪽만이 생존되는 부모의 그것과 일치한다. 세 번째 순환계를 달성하는 그들은, 그들의 부모들의 지위와 상관없이, 개인수호자들이 주어진다.

49:6.14 (570.3) 비슷한 시험 유아원들이 상승자들의 1차 그리고 2차 수정된 계층들의 조절자 없는 자녀들을 위해 우주 본부와 별자리의 최종자 구체 위에 유지되고 있다.

49:6.15 (570.4) 4. 상승의 2차 변경 계층의 필사자. 이들은 중간에 있는 진화 세계들의 진보하는 인간 존재들이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자연적인 죽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그들은 일곱 맨션세계들을 통과하는 것이 면제된다.

49:6.16 (570.5) 미진한 완전집단은, 맨션세계들만을 지나쳐서, 그들의 지역체계 본부에서 다시 깨어난다. 중간에 있는

집단들은 별자리 훈련 세계들로 가며; 그들은 지역체계의 전체 모론시아 체제를 지나친다. 영적 분투의 행성 세월에 있어서 더욱 멀리 나아가면, 많은 생존자들은 별자리 본부에서 깨어나며 거기에서 파라다이스 상승을 시작한다.

49:6.17 (570.6) 그러나 이들 집단 중 어느 하나라도 전진하기 전에, 그들은 반드시 그들이 지나친 세계들에 강사로서 되돌아가야만 하며, 그들이 학생으로서는 지나친 그 영역들에서 선생들로서 많은 체험들을 획득한다. 그들은 모두 그 다음에 필사자 진보의 규정된 경로들에 의해 파라다이스로 나아간다.

49:6.18 (570.7) 5. 상승의 1차 변경 계층의 필사자. 이들 필사자들은 진화적 생명의 조절자-융합 유형에 속하지만, 그들은 매우 종종 진화하는 세계에서의 인간 발달의 최종적 위상들을 대표한다. 영화롭게 된 이 존재들은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것에서 제외 된다; 그들은 아들이 잡아채는 것에 몸을 맡기며;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전환되어 지역우주의 본부의 주권자 아들 현존 안에 즉시 나타난다.

49:6.19 (570.8) 이들은 필사자 삶 동안 그들의 조절자들과 융합된 필사자들이며, 그러한 조절자-융합 개인성들은 모론시아 형체들을 입기 전에 자유롭게 공간을 건너간다. 이들 융합 혼들은 조절자의 직접 이동에 의해 보다 높은 모론시아 구체의 부활실로 가며, 그곳에서 그들은 진화 세계들에서 도착하는 다른 모든 필사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의 최초 모론시아 의상을 받아들인다.

49:6.20 (570.9) 필사자 상승의 이 1차 변경 계층은 조절자-융합 세계들의 가장 낮은 단계로부터 가장 높은 단계까지 어떤 행성 계열에서든지 개별존재들에게 적용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신성한 아들의 수많은 머무름의 은혜를 받아들인 뒤에 이들 구체들 가운데 더욱 오래된 곳에서 점점 더 자주 일어난다.

49:6.21 (570.10) 빛과 생명의 행성 시대가 이루어짐과 함께, 많은 이들이 전환의 1차 변경 계층으로 우주 모론시아 세계들로 많이 간다. 안정된 실존의 진보된 단계들을 더 따라가서, 영역을 떠나는 필사자들의 대부분이 이 부류에 포용될 때, 행성은 이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연적인

죽음은 오랫동안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된 이들 구체들에서
점점 덜 자주 일어나게 된다.

49:6.22 (571.1) [행성 관리-행정의 예루셈 학교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50 편 행성 영주

50:0.1 (572.1) 행성영주들은, 라노난덱 아들들의 계층에
속하지만 한편, 봉사에 있어서 너무나 특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보통 다른 집단으로 간주된다. 그들의
멜기세덱이 2차 라노난덱됨을 증명한 후에, 이들
지역우주 아들들은 별자리 본부에 있는 그들 계층의
예비자들에 배정된다. 여기서부터 그들은 체계 주권자에
의해 다양한 임무에 배정되며 결국에는 행성영주들로
임명되고 진화하는 거주 세계들을 다스리도록 보내진다.

50:0.2 (572.2) 주어진 행성에 한 통치자를 배정하는 문제에서
체계 주권자에게 행동하도록 하는 신호는,
생명운반자들이 생명을 확립시키고 진화하는 지능
존재들을 개발시킨 이 행성에, 그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행정-관리적 우두머리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대한
허락이다. 진화하는 필사 창조체들이 거주하는 모든

행성들은 아들관계를 갖는 이 계층의 한 행성 통치자를 그들에게 배정하고 있다.

제 1 장. 영주들의 임무

50:1.1 (572.3) 행성영주와 그의 보좌관 형제는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이 시간과 공간의 낮은 계층의 창조체들을 만들 수 있는 (육신화를 제외하고) 가장 가깝게 개인성구현된 접근 상태를 나타낸다. 정말로, 창조자 아들은 자신의 영을 통하여 영역들의 창조체들과 접촉하지만, 행성영주는 파라다이스로부터 나와서 사람 자녀들에게로 뻗어 나가는 개인적 아들들의 마지막 계층들이다. 무한한 영은 운명의 수호자들 그리고 다른 천사 존재들의 개인들로서 매우 가까이 접근 한다; 우주 아버지는 신비 감시자들의 전(前)개인적 현존에 의해 사람 안에 거주하지만; 행성영주는 너희에게 다가가는 영원한 아들과 그의 아들들의 최종적인 노력을 나타낸다. 새롭게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서 행성영주는 완성된 신성(神性)의 독점적 대표자인데, 창조자 아들(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자손)과 신성한 사명활동자(무한한 영의 우주 딸)로부터 생긴다.

50:1.2 (572.4) 새롭게 거주민이 사는 세계의 영주는 조력자들과 보좌관들의 충성스러운 무리에 의해 그리고 많은 숫자의 사명활동하는 영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세계들의 감독하는 무리단은 행성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납득하고 그것들에 대해 태생적으로 동정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체계의 행정-관리자들 중 비교적 낮은 계층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진화 세계들을 위한 동정심 있는 통치 권한을 제공하려는 이 노력 전체는, 인간에 가까운 이 개인성들이 최극 통치자들의 뜻 위로 높이 그들 자신의 마음들을 고양시킴으로써 빛나갈 수도 있다.

50:1.3 (572.5) 개별 행성들에서 신성의 대표자들로서 오직 홀로 있을 때, 이들 아들들은 혹독하게 시험을 받으며, 네바돈은 여러 차례의 불행한 반역들을 겪어 왔다. 체계 주권자들과 행성영주들의 창조가 있을 때 우주 아버지 그리고 영원한 아들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지는 개념의 개인성구현이 발생하며, 한 존재의 자아-중요성으로서의 균형 감각을 잃는 점증되는 위험과 수많은 계층의 신성의 존재들과 그들의 권한의 등급에 대한 가치들과 관계들을 계속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더 큰 실패의 가능성이 거기에 있다. 아버지가 지역우주에 개인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들 아들들 전체에 대한 일정한 신앙과 충성심의 시험을 내포한다.

50:1.4 (573.1) 그러나 거주민이 사는 구체들을 조직하고 관리-운영하는 그들의 임무에 있어서 이 세계 영주들이 실패하는 일은 자주 발생하지 않으며, 그들의 성공은 물질아들들의 이어지는 사명활동을 크게 촉진시키는데, 그들은 세계들의 원시인들에게 보다 높은 형태의 창조체 삶을 주입시키기 위해 온다. 그들의 통치는 또한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을 위해 행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그 후에 세계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리고 계속적인 섭리시대들을 개시하기 위해 온다.

제 2 장. 행성의 관리-행정

50:2.1 (573.2) 모든 행성영주들은 가브리엘, 미가엘의 우두머리 집행자의 우주 행정-관리적 관할권 아래에 있는 반면, 직접적인 권한에 있어서는 그들이 체계 주권자들의 집행적 명령에 종속된다.

50:2.2 (573.3) 행성영주들은 언제든지 멜기세덱들의 조언, 그들의 이전(以前) 강사들 그리고 후원자들의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러한 도움을

요청하도록 독단적으로 요청되지는 않으며, 만일 그러한 도움이 자발적으로 요청되지 않았다면, 멜기세덱들은 행성의 관리-행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 세계 통치자들은 24명의 조연자들의 충고를 따를 수도 있는데, 체계의 증여 세계들로부터 소집된다. 사타니아에서는 현재 이 조연자들이 모두 유란시아에서 태어난 자들이다. 그리고 별자리 본부에 있는 비슷한 70인 협의회 역시 영역들의 진화적 존재들로부터 선택된다.

50:2.3 (573.4) 그들의 초기 그리고 정착되지 않은 생애에 있어서의 진화적 행성들의 규칙은 주로 독단적이다. 행성영주들은 그들의 행성 도움자 무리단 가운데로부터 그들의 특별한 보좌관들의 집단들을 조직한다. 그들은 대개 12명의 최고협의회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것은 다양하게 선택되었고 다른 세계들에 다양하게 임명되어 있다. 또한 한 행성영주는 아들관계를 갖는 자기 자신의 집단의 세 번째 계층에 해당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그리고 특정한 세계들에서 때로는 자기 자신의 계층 중 한 명, 한 명의 2차 라노난덱 연관-동료를 보좌관으로 소유할 수 있다.

50:2.4 (573.5) 한 세계 통치자의 전체 참모진은 무한한 영의 개인성들과 특정한 유형의 비교적 높게 진화된 존재들 그리고 다른 세계들로부터 상승하는 필사자들로 구성된다. 그러한 참모진은 평균적으로 약 1,000명이며, 그 행성이 진보하면, 이 조력자 무리단은 10만 명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다. 더 많은 조력자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어느 때든지, 행성영주들이 그들의 형제들, 체계 주권자들에게 요청만 하면 되며, 청원은 즉시 실행된다.

50:2.5 (573.6) 행성들은 본성, 조직 그리고 관리-행정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지만, 전체는 공의(公義)의 법정들을 위해 준비한다. 지역우주의 사법 체계는 행성영주의 법정에서 지원되는데, 그것은 그의 개인적 참모진의 한 성원에 의해 지배된다; 그러한 법정들의 판결들은 상당히 아버지답고 그리고 사려 깊은 분별이 있는 태도를 반영한다. 행성 거주자들의 규제를 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사들은 더 높은 법정에게 청원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영주의 세계 권역에서의 사건들은 주로 영주의 개인적인 사려 깊은 분별력에 따라 조절된다.

50:2.6 (574.1) 화해자들의 이동 위원회들이 행성 법정들을 돕고 보충해 주며, 영 통제자와 물리통제자 둘 모두가 이들 화해자들의 연구 결과를 따른다. 그러나 별자리 아버지의 승낙 없이 독단적인 집행이 수행되는 일은 결코 없는데, 왜냐하면 “지고자들이 사람들의 왕국들을 통치하기” 때문이다.

50:2.7 (574.2) 행성 임무의 통제자들 그리고 변환자들 역시 후자의 이 개인성들로 하여금 필사 창조체들에게 보이게 하는 일에 있어서 천사들 그리고 다른 계층의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협동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 세라핌천사 조력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멜기세덱들은 진화 세계들의 거주민들에게 자신을 보이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행성영주의 참모진의 일부분으로서 체계 본부로 부터 필사자 상승자들을 데려오는 주요 이유는 영역의 거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쉽게 하기 위함이다.

제 3 장. 영주의 유형 참모진

50:3.1 (574.3) 나이 어린 세계로 감에 있어서, 행성영주는 지역체계 본부로부터 상승하는 자발적 존재들의 한 집단을 대개 데리고 간다. 이들 상승자들은 초기 종족

개량의 작업에 있어서 충고자들과 조력자들로써 영주를 따라간다. 이들 육체적 조력자들의 무리단은 영주와 세계 종족들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를 구성한다. 유란시아 영주인 칼리가스티아는 100명으로 구성된 그러한 조력자들의 무리단을 가졌었다.

50:3.2 (574.4) 그러한 자발적 보좌관들은 한 체계 본부의 시민들이며, 그들 중 누구도 그들의 내주 하는 조절자들과 결합되지 않았다. 그러한 자발적 봉사자들의 조절자들의 지위는 이 모론시아 진보자들이 일시적으로 이전(以前)의 물질적 상태로 되돌아간 동안 체계 본부에서 기다리는 거주지에 남아 있다.

50:3.3 (574.5) 형태의 고안건축가들인 생명운반자들이 그러한 자원자들에게 새로운 물질적 몸체들을 제공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행성에 머무는 동안 그것을 차지한다. 이 개인성 형태들은, 영역들의 일반적 질병들로부터 면역되어 있는 반면, 초기 모론시아 몸체들과 마찬가지로, 기계적인 특성의 특정한 우연한 현상들의 지배를 받는다.

50:3.4 (574.6) 영주의 유형 참모진은 두 번째 아들이 구체에 도착하였을 때 그 다음 판결과 관련하여 행성으로부터

대개 떠나게 된다. 떠나기 전에, 그들은 습관적으로 그들의 공동 자녀들에게 그리고 특정한 우월한 토착 자원자들에게 그들의 다양한 임무들을 부여한다. 영주의 이 조력자들이 토착 종족들 중에서 뛰어난 집단들과 결혼하도록 허락을 받은 세계들에서, 그러한 자녀들은 대개 그들의 후임자가 된다.

50:3.5 (574.7) 행성영주에 대한 이들 보좌관들은 세계 종족들과 결혼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그들은 항상 자기들 안에서 결혼한다. 두 부류의 존재들이 이들 연합들로부터 발생된다: 아담과 이브의 도착 시에 그들의 부모들이 행성으로부터 떠나게 된 후에 영주의 참모진에게 계속 배정되어 있는 1차 유형의 중도 창조체들 그리고 특정한 높은 유형의 물질적 존재들. 이 자녀들은 특별한 응급의 경우들을 제외하고 필사 종족들과 결혼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오직 행성영주의 지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한 사건 안에서는 그들의 자녀들—유형 참모진의 손자들—은 그들의 시대와 세대의 우월한 종족 상태에 있다. 행성영주의 이들 반(半)물질 조력자들의 자손들 전체에게는 조절자가 내주 한다.

50:3.6 (575.1) 영주의 통치가 끝날 때, 이 “복귀 참모진”이 파라다이스 생애의 재개를 위해 체계 본부로 되돌아 갈 때가 되었을 때, 이 상승자들은 그들의 물질적 육신들을 양도할 목적으로 생명운반자들에게로 온다. 그들은 변환 수면 상태로 들어가고 그들의 필사자 수여로부터 해방되어 깨어나 모론시아 형태들을 부여받는데, 체계 본부로 돌아가는 세라핌천사 운송을 위해 준비를 갖추며, 그곳에서 그들의 분리된 조절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예루셈 계층 보다 전반적으로 한 세대를 뒤쳐져 있지만, 그들은 하나의 독특하고도 비범한 체험, 상승하는 필사자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의 진귀한 장(章)을 획득하였다.

제 4 장. 행성 본부와 학교

50:4.1 (575.2) 영주의 유형 참모진은 일찍부터 훈련과 문화의 행성 학교들을 조직하는데, 그곳에서 진화적 종족들 중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며 그 다음에는 그들의 민족에게 더 나은 이 방법들을 가르치도록 파견된다. 영주의 이 학교들은 행성의 물질적 본부에 위치한다.

50:4.2 (575.3) 이 본부 도시의 설립과 관련된 물질적 작업의 대부분은 유형 참모진에 의해 수행된다. 행성영주의 초기 시대의 그러한 본부 도시들, 또는 정착지들은, 유란시아 필사자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매우 다르다. 그것들은 후기 시대들과 비교할 때 단순한데, 그 특징은 광물 장식과 비교적 진보된 물질적 구조물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정원 본부 주위에 중심을 두는 아담의-통치체제와 반대편에 서 있는데, 종족들을 위한 그들의 활동은 우주 아들들의 두 번째 세대 동안 그것으로부터 추진된다.

50:4.3 (575.4) 너희 세계에 있는 본부 정착지에서 모든 인간 주택이 풍부한 땅과 함께 제공되었다. 비록 멀리 있는 부족들이 계속 사냥을 하고 음식을 찾아다녔지만, 영주의 학교들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들은 모두 농업과 원예에 종사하였다. 시간은 다음과 같은 일들 사이에서 거의 똑같이 분배되었다.

50:4.4 (575.5) 1. 육체적 노동. 땅 경작, 집을 짓고 장식하는 것과 연관됨.

50:4.5 (575.6) 2. 사회적 활동. 여흥과 문화적인 사회적 배치들을 이룸.

50:4.6 (575.7) 3. 교육적 적용. 특별하게 마련된 계층 훈련으로 보충된, 가족-집단 교육과 관련된 개별적 지도.

50:4.7 (575.8) 4. 직업 훈련. 결혼과 가정 설립의 학교들, 예술 그리고 공작 훈련 학교들, 그리고 선생들 훈련을 위한 학급들—세속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50:4.8 (575.9) 5. 영적 문화. 선생 형제신분, 소년과 청년 집단들의 깨우침, 그리고 입양된 토착민 아이들을 그들 민족에게 보내는 선교사로서 훈련.

50:4.9 (575.10) 행성영주는 필사 존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의 참모진의 반 물질적 존재들이 묘사한 것을 믿는 것은 신앙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다. 그러나 문화와 훈련의 이 학교들은 각 행성의 필요들에 잘 맞추어져 있으며, 이 다양한 배움의 기관들에 들어가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 있어서 사람 종족들 사이의 예민하고도 칭찬할만한 경쟁이 곧 개발된다.

50:4.10 (575.11) 그러한 문화와 성취의 세계 중심지로부터, 진화적 종족들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변환시키는 고양시키고 개화시키는 영향이 온 민족들에게 점차적으로 퍼져

나가게 된다. 영주의 학교들에 받아들여지고 교육을 받았던 주변의 민족들 중 교양 있고 영성화 된 자녀들이 자신들의 선천적 집단들에게 되돌아가고 그들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동안, 그들이 영주의 학교들의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배움과 문화의 새롭고도 유능한 중심지들이 거기에 계속 세워진다.

50:4.11 (576.1) 유란시아에서는 행성 진보와 문화적 증진을 위한 이 계획들이 잘 수행되어 가장 만족스럽게 진행되었는데, 모든 일들은 루시퍼 반란에 대한 칼리가스티아의 지지에 의해 다소 갑작스럽고도 가장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50:4.12 (576.2) 나와 동일한 계층의 아들관계에 속하는 존재, 칼리가스티아의 냉담한 배반을 알게 된 일은 나에게 있어서 이 반역에 관한 가장 충격적인 에피소드 중 하나였으며, 그는 자의적으로 그리고 사악하게 모의된 생각을 품고, 조직적으로 교훈을 왜곡시켰으며 그 당시 운영되는 유란시아 행성 학교들 전체에 제공되던 가르침을 오염시켰다. 이들 학교의 파멸은 빠르고도 완벽하였다.

50:4.13 (576.3)

영주의 물질화된 참모진의 상승자들의 자손들 대부분은 충성스럽게 남았는데, 칼리가스티아 계열에서 탈퇴하였다. 충성스러운 이 존재들은 유란시아의 멜기세덱 접수자들에 의해 용기를 얻었으며, 그들의 후기 시대에 있어서 그들의 후손들은 진리와 정의(正義)에 대한 행성 개념을 지탱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였다. 충성스러운 이 전도자들의 활동은 유란시아에서의 영적인 진리 전체가 소멸되는 것을 막도록 도움을 주었다. 용감한 이 혼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아버지의 통치에 대한 어떤 살아있는 지식을 보존하였고 신성한 아들들의 다양한 계층들의 계속적인 행성 세대들에 대한 개념을 세계 종족들을 위해 보존하였다.

제 5 장. 진보적인 문명달성

50:5.1 (576.4)

거주되는 세계들의 충성스러운 영주들은 그들의 기원적 임무에 해당하는 행성에 영원하게 배속된다. 파라다이스 아들과 그들의 세대들은 왔다 갈 수 있지만, 성공적인 행성영주는 자신의 영역에 대한 통치자로서 계속된다. 그의 업무는 더욱 높은 아들들의 임무들과 전혀 독립되어 있는데, 행성 문명화의 발전을 육성하도록 고안되었다.

50:5.2 (576.5) 문명의 진보는 어떤 두 행성에서도 거의 같지 않다.

필사자 진화에 대한 설명의 내용들은 수많은 다른 세계들에서 매우 다르다. 물리적, 지적 그리고 사회적 계통들에 따른 행성 발달의 이 많은 다양성들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화 세계들은 잘 정의(定意)된 어떤 방향들 속에서 진보한다.

50:5.3 (576.6) 행성영주의 친절한 통치 아래에서, 물질아들들에

의해 증강되고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주기적 임무들에 의해 구분되면서, 시간과 공간 세계에 있는 필사 종족들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개의 발전의 신(新)시대들을 계속해서 지나가게 될 것이다:

50:5.4 (576.7) 1. 영양 섭취 신(新)시대. 인간-이전(以前)족의

창조체들과 원시인의 여명기 종족들은 주로 식량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 진화하는 존재들은 먹이를 찾거나 공격적으로 또는 방어적으로 싸우는 일에 그들의 깨어 있는 시간들을 보낸다. 식량 탐색은 이들 다음 문명의 초기 선조들의 마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50:5.5 (576.8) 2. 보호안전 시기. 원시 사냥꾼들이 먹이를

탐색하는 일로부터 어떤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는 즉시로,

그는 자신의 안전을 증강시키는 일에 이 여가시간을 보낸다. 점점 더 많은 관심이 싸우는 기법에 투자된다. 거주지가 점점 더 보강되고, 동족들은 상호적 두려움에 의해 그리고 다른 집단들에 대한 미움을 가르쳐줌으로써 굳어진다. 자아-영속은 자아-유지를 항상 뒤따르는 일이다.

50:5.6 (577.1) 3. 물질적-위로 시대. 식량 문제들이 부분적으로 해결되어 왔고 어느 정도의 안전이 성취되어 온 후에, 추가적인 여가 시간이 개인적 안락을 위해 활용된다. 사치가 필요성과 함께 인간 활동들의 단계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인다. 그러한 시대는 횡포, 편협함, 탐욕 그리고 술 취함으로서 종종 특징 지워진다. 종족들의 나약함의 요소들은 과잉과 잔학으로 기울어진다. 이들 쾌락을 추구하는 허약자들은 진보하는 문명의 더욱 강하고 진리를-사랑하는 요소들에 의해 차츰차츰 정복된다.

50:5.7 (577.2) 4. 지식과 지혜의 추구. 식량, 안전, 쾌락, 그리고 여가는 문화발달과 지식확산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지식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지혜를 가져오고, 문화가

체험에 의해 유익을 주고 개선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때 문명은 이미 실제적으로 도달되었다. 식량, 안전 그리고 물질적 편안함이 여전히 사회를 지배하지만, 앞을 내다보는 많은 개별존재들은 지식에 굶주리고 지혜를 갈망한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행함으로 배우는 기회가 제공 된다; 교육은 이들 시대의 표어이다.

50:5.8 (577.3) 5. 철학과 형제신분의 신(新)시대. 필사자들이 생각하는 것을 배우고 체험으로서 유익을 얻기 시작할 때, 그들은 철학적으로 바뀌어 간다.—그들은 자신 속에서 이유를 생각해 내고 특징적인 판단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이 시대의 사회는 윤리적이 되기 시작하며, 그러한 시대의 필사자들은 참으로 도덕적 존재가 된다. 지혜로운 도덕적 존재들은 그러한 진보하는 세계에 인간 형제신분을 수립할 능력이 있다.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 존재들은 황금률에 따라서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50:5.9 (577.4) 6. 영적 분투의 시기. 진화하는 필사자들이 육체적, 지적, 그리고 사회적 발달 단계를 지나갔을 때, 그들은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만족과 조화우주 납득을 추구하도록 재촉하는 개인적 통찰력의 차원들을 곧

달성한다. 종교는 두려움과 미신의 감정적 권역들로부터 조화우주 지혜 그리고 개인적인 영적 체험의 높은 차원에 이르는 향상을 완성해 간다. 교육은 의미들의 달성을 열망하고 문화는 조화우주 관계들과 참된 가치들을 잡으려고 한다. 진화하는 그러한 필사자들은 진정으로 문화화 되었고, 참으로 교육되었으며, 지극하게 하느님을 안다.

50:5.10 (577.5) 7. 빛과 생명의 시대. 이것은 육신적 안전, 지적 확대, 사회적 문화, 그리고 영적 성취의 계속적인 시대들의 개화기이다. 이 인간적 성취는 현재 우주적 합일과 사심-없는 봉사 속에 혼합되고 연관되며 조화-협동된다. 유한적 본성과 물질적 자질들의 한계들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이 우수하고 안정된 세계들에서 연속적으로 사는 진보하는 세대들에 의해 진화적 달성의 가능성이 속박되는 법이 없다.

50:5.11 (577.6) 세계 역사의 연속되는 세대들과 행성 진보의 발전하는 신(新)시대들에 두루 그들의 구체를 도와준 후에, 행성영주들은 빛과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행성주권자의 지위로 승진된다.

제 6 장. 행성 문화

50:6.1 (578.1) 유란시아의 고립은 너희 사타니아 이웃들의 생명과 환경의 많은 내용들을 발표하는 일에 착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들 발표들에서 우리는 행성의 격리와 그리고 체계의 고립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 우리는 유란시아 필사자들을 깨우치려는 모든 우리의 노력에서 이들 제약을 따라야만 한다, 그러나 허용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너희는 평균적인 진화 세계의 진보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 왔으며, 그리고 너희는 그러한 세계의 생애를 유란시아의 현재 상태와 비교할 수 있다.

50:6.2 (578.2) 유란시아에서의 문명의 발달은 영적 고립의 불운을 겪어 온 다른 세계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주의 충성스러운 세계들과 비교하면, 너희 행성은 가장 혼동되어 있으며 지적 진보와 영적 달성의 모든 위상들에서 크게 뒤떨어져 있다.

50:6.3 (578.3) 너희 행성의 불운 때문에, 유란시아인들은 정상적인 세계의 문화에 대하여 대단히 많이 납득하는데 방해 받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진화 세계들이, 아니 가장 이상적인 세계조차, 그곳에서의 삶이, 꽃으로 뒤덮인

안락한 침대의 구체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 필사 종족들의
처음 삶은 항상 분투로서 이루어진다. 노력과 결정은 생존
가치들을 획득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50:6.4 (578.4) 문화는 마음의 본질특성을 전제로 한다; 문화는
마음이 상승되지 않으면 증진될 수 없다. 우수한 지성은
고귀한 문화를 추구할 것이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길을 발견할 것이다. 열등한 마음은 그들에게 이미
만들어진 것을 제시할 때에도 가장 높은 문화를 거절할
것이다. 또한 많은 것이 신성한 아들들의 연속되는 사명에
달려있으며, 그들 해당되는 섭리시대의 세대들이
깨우침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달려있다.

50:6.5 (578.5) 너희는 200,000년 동안 사타니아의 모든 세계들이
루시퍼 반란 때문에 놀라시아텍의 영적 금지령 밑에서
정지되어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죄와
단절의 결과적 불이익을 회복하는 데에는 긴 시대가
요구된다. 너희의 세계는 반역의 행성영주와 불이행을
행한 물질아들의, 이중적 비극의 결과로서 불규칙적이고
변화가 많은 생애를 아직도 계속 뒤따르고 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증여된 것조차도 세계의

초기 관리-행정에 있었던 이들 심각한 실책의 현세적 결과들을 즉시 해결하지 않았다.

제 7 장. 고립에 대한 보상

50:7.1 (578.6) 얼핏 생각할 때에는, 유란시아 및 그 연관된 고립 세계들이, 행성영주와 물질아들과 딸과 같은 그러한 초인간 개인성들의 유익한 현존과 영향을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가장 불운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 구체의 고립은 그들 종족에게 신앙의 실천을 위한, 그리고 보이는 것이나 혹은 다른 어떤 물질적 고려사항에도 의존하지 않은 조화우주 신뢰성을 자신하는 그러한 특유한 본질특성을 개발하기 위한,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결국에는 반역의 결과로 고립된 세계에서 부름받으며 나오는 필사 창조체들이 지극히 행운인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러한 상승자들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신앙과 숭고한 자신감이 사업의 성취에 필수가 되는 그러한 조화우주 과업에, 수없이 많이 특별한 배정으로 아주 일찍부터 맡겨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왔다.

50:7.2 (579.1) 예루셈에서는 고립된 이들 세계로부터의 상승자들이 자신들의 거주구역을 차지하며 아곤돈터들로

알려져 있는데, 보지 않고 믿을 수 있고, 고립되었을 때 견디며, 그리고 홀로 있을 때라도 극복하기 어려움들에 승리하는 진화적 의지 창조체들을 의미한다. 아곤돈터들이 이렇게 기능적으로 집단을 이루는 것은 지역우주의 상승과 초우주의 통과에 두루 지속 된다; 그것은 하보나에 머무는 동안 사라지지만 파라다이스에 도착할 때 즉시 다시 나타나며 필사자 최종자 무리단에서 분명하게 지속된다. 타바만시아는 최종자 지위를 갖는 아곤돈터인데, 그는 시간과 공간의 우주 안에서 언젠가 발생되었던 첫 번째 반역에 가담했던 격리 구체 중의 하나에서 생존 하였다.

50:7.3 (579.1) 파라다이스 생애에 두루, 원인에 대한 결과처럼 노력에는 보상이 따라온다. 그러한 보상들은 개별존재를 평범한 자로부터 구별하고, 창조체 체험에서의 차이를 제공하며, 최종자의 집합체 안에서 궁극적 행위의 다양성에 기여한다.

50:7.4 (579.1) [예비무리단의 2차 라노난덱 아들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51 편 행성 아담

51:0.1 (580.1) 행성영주의 섭리시대 동안, 원시인은 자연적인 진화적 발달의 한계에 도달하며, 이 생물학적 달성은 아들관계의 2차 계층, 생물학적 제고자(提高者)들을 체계 주권자가 그러한 세계에 보내도록 신호를 준다. 이 아들들은 두 종류—물질아들과 딸—가 있기 때문에 대개 아담과 이브로서 행성에게 알려져 있다. 사타니아의 기원적인 물질아들은 아담이며, 생물학적 제고자들로서 체계 세계들에게로 가는 그들은 독특한 그들 계층의 이 첫 번째 그리고 기원적 아들의 이름을 항상 지닌다.

51:0.2 (580.2) 이들 아들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 대한 창조자 아들의 물질적 선물이다. 행성영주와 함께, 그들은 그러한 구체의 진화적 과정에 두루 배정된 그들의 행성에 남는다. 행성영주가 주둔하는 세계에서의 그러한 모험 여행은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배신한 행성, 영적인 통치자가 없고 행성간의 통신이 두절된 영역에서는 그러한 임무가 심각한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51:0.3 (580.3) 너희가 사타니아 그리고 다른 체계들의 전체 세계들에서 이 아들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 알 수 없을지라도, 유란시아 종족들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예루셈의 생물학적 제고자들의 무리단으로부터 왔던 흥미로운 한 쌍, 아담과 이브의 삶과 체험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하게 다른 글들에서 언급된다. 너희 원주민 종족들을 개선하기 위한 이상적인 계획들의 실패가 있었지만, 그래도 아담의 임무가 무익했던 것은 아니며; 유란시아는 아담과 이브라는 선물로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익을 얻었고, 그들의 동료들 가운데에서는 그리고 저 높은 곳의 협의회에서는 그들의 업적이 전체적인 실패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 1 장. 하느님의 물질아들들의 기원과 본성

51:1.1 (580.4) 물질적 또는 성(性)적 아들과 딸들은 창조자 아들의 후손이다; 우주 어머니 영은 진화 세계들에 대한 육신적 제고자들로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운명되어진 이 존재들의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다.

51:1.2 (580.5) 아들관계에서의 물질적 계층은 지역우주에 두루 균일하지는 않다. 창조자 아들은 각각의 지역체계마다 오직 한 쌍의 이들 존재들을 산출한다; 기원적인 이 쌍들은 본성에 있어서 다양한데, 그들 각각의 체계들의 생명 원형틀들에 맞춰진다. 이것은 하나의 필수적인 조건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담들의 번식 잠재가 어떤 하나의 독특한 체계의 세계들에 존재하는 진화하는 필사 존재들의 그것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란시아에 왔던 아담과 이브는 물질아들들 중 기원적 사타니아 쌍으로부터 내려왔다.

51:1.3 (580.6) 물질아들들은 키가 8피트부터 10피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그들의 육신은 보라색의 반짝이는 빛이 난다. 물질적인 피가 그들의 몸체 전체를 흐르는 동시에, 또한 그들은 신성한 에너지로 충전되어 있고 천상의 빛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물질아들들(아담들)과 물질딸들(이브들)은 서로 동등한데, 번식 본성에 있어서만 그리고 특정한 화학적 자질에 있어서만 다를 뿐이다. 그들은 동등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면에서 다르며—그리하여 상호보완적인—거의 모든 임무들에 있어서 쌍으로 봉사하도록 만들어졌다.

51:1.4 (581.1) 물질아들들은 이원적(二元的)으로 영양을 섭취한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체질에 있어서 실제로 이원적(二元的)인데, 영역의 육신적 존재들이 하는 것과 거의 똑같이 물질화 된 에너지를 섭취하며, 반면에

그들의 불멸의 실존은 특별하게 유지하는 조화우주 에너지들의 직접적이고도 자동적인 흡수에 의해 충분히 유지된다. 만약에 그들이 부여된 어떤 임무에서 실패하거나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반역을 일으키게 되면, 빛과 생명의 우주 근원으로부터 단절된다. 그때부터 그들은 실천적으로 물질적인 존재들이 되는데, 그들이 배정된 세계에서 물질적인 삶의 과정을 걸어가게 되며 판결을 받기 위해 우주 법정에 출두해야만 한다. 그러한 불행하고도 어리석은 물질아들 또는 딸의 행성 생애를 물질적 죽음이 결국에는 종료시키게 될 것이다.

51:1.5 (581.2) 기원적인 또는 직접적으로 창조된 아담과 이브는 지역우주 아들관계의 다른 모든 계층들과 똑같이 선천적인 자질에 의해 불멸성을 갖지만, 불멸성 잠재의 감소가 그들의 아들과 딸들의 특성이다. 기원적인 이 부부는 무조건적 불멸성을 그들이 낳은 아들과 딸들에게 전달할 수 없다. 그들의 자손은 영의 마음-중력 순환회로의 깨어지지 않는 지능적 동조 상태에서 계속하는 생명에 의존한다. 사타니아 체계가 시작된 이후로, 13명의 행성 아담들이 반역과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실되었으며 681,204명의 종속들이 손실되었다. 이러한
결혼의 대부분은 루시퍼 반란 때에 발생하였다.

51:1.6 (581.3) 체계 수도에서 영구적인 시민들로서 사는 반면,
진화적인 행성들로 내려가는 임무들에서 활동할 때,
물질아들들은 생각 조절자들을 소유하지 않지만, 조절자
내주 그리고 파라다이스 상승 생애를 위한 체험적 능력을
그들이 성취하는 것은 바로 이 봉사들을 통해서이다.
독특하면서도 놀라운 정도로 유익한 이 존재들은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들이다. 그들은
체계 본부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영역의
물질적 시민들로서 자녀를 낳고 계속 살아가며,
거기로부터 그들은 진화 세계들에게 보내진다.

51:1.7 (581.4) 행성 봉사에 참여하는 다른 창조된 아들들과는
달리, 아들관계의 물질적 계층은 본질적으로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같은 물질적 창조체들의 눈에 보인다.
하느님의 이 아들들은 보일 수 있고 납득될 수 있으며,
시간의 창조체들과 실재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데,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아이를 낳을 수도 있으며, 생물학적

제고(提高)의 이 역할이 대개 행성 아담들의 후손에게로 넘어간다.

51:1.8 (581.5) 예루셈에서는 아담과 이브의 총성스러운 자녀들이 불멸성을 갖지만, 물질아들과 딸이 어떤 진화적 행성에 도착한 후 출산한 후손들은 자연적 죽음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어떤 진화 세계에서의 번식 기능을 위하여 이 아들들이 재(再)물질화 될 때 생명-전달 기능구조에 변화가 발생한다. 죽지 않는 아들과 딸들을 낳는 능력을 생명운반자들이 행성 아담들과 이브들로부터 고의적으로 빼앗는다. 만약에 그들이 불이행하지 않는다면, 행성 임무를 띤 아담과 이브는 무기한으로 살 수 있지만, 어떤 제한들 속에서 그들의 자녀들은 각각의 이어지는 세대들마다 생명이 줄어드는 것을 체험한다.

제 2 장. 행성 아담들의 변화

51:2.1 (582.1) 거주되는 다른 세계가 물리적 진화의 절정에 달하였다는 소식을 받게 되면, 체계 주권자는 체계 수도에 있는 물질아들과 딸들의 무리단을 소집 한다; 그러한 진화 세계에 대해 토의한 후에, 자원하는 집단 중 두 명—물질아들의 선배 무리단에 속한 한 명의 아담과 한

명의 이브 두 명—이 모험 여행을 하도록 선택되는데, 연관된 봉사의 자기 고향으로부터 새로운 기회들과 새로운 위험들이 있는 새 영역으로 옮겨지기 위해, 세라핌천사에게 둘러싸인 존재로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모험에 들어간다.

51:2.2 (582.2) 아담들과 이브들은 반(半)물질 창조체들이며, 그러한 상태로는 세라핌천사에 의해 운송되지 않는다. 그들은 배정될 세계로 운송되도록 세라핌천사에 의해 둘러싸일 수 있기 전에 체계 수도에서 반드시 비(非)물질화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 운송 천사들은 물질아들들 안에서 그리고 다른 반 물질적 존재들 안에서 그러한 변화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세라핌천사에 둘러싸이게 하고 그리하여 한 세계 또는 체계로부터 다른 곳으로 공중을 통해 운송되게 한다. 이러한 운송 준비에 표준시간으로 3일이 소요되며, 비(非)물질화된 그러한 창조체가 세라핌천사-운송 여행을 끝내고 도착하여 정상적인 실존으로 재생되는 일에는 생명운반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아담들이 예루셈으로부터 진화세계들로 옮겨지도록 준비되는 일에 이 비(非)물질화 기법이 있는 반면에, 행성 전체가 비워져야만 되는, 그곳의 어떤 사건에서 구원될 만한 인구 전체를 위하여 비(非)물질화 기법의 응급설치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세계들로부터 그들을 데려가는 동등한 방법은 없다. 만약에 물리적 대 참사가 진화하는 어떤 종족의 행성 거주지에 일어난다면, 멜기세덱들과 생명운반자들은 모든 생존자들을 위하여 비(非)물질화의 기법을 설치할 것이며, 이곳의 존재들은 세라핌천사 운송에 의해 그들의 계속되는 실존을 위해 준비되는 새로운 세계로 옮겨질 것이다. 인간 종족의 진화는, 공간의 세계에서 일단 시작되고 나면, 행성의 물리적 생존과는 전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진화의 시대 동안에 행성 아담 또는 이브가 그들이 선택한 세계를 떠날 수 있도록 달리 작정되지는 않는다.

행성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면 물질아들과 딸은 생명운반자들의 지도 하에 재(再)물질화 된다. 이 전체 과정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10일내지 28일이 소요된다. 세라핌천사 수면의 무의식 상태는 재구성되는 이 전체

기간 동안 계속된다. 물리적 유기체의 재구성이 완성되면, 이 물질아들들과 딸들은 그들이 예루셈에서 비(非)물질화 되도록 내어주기 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취지들과 목적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새로운 고향에 그리고 자신들의 새로운 세계들에 참여한다.

제 3 장. 아담의 사명임무

51:3.1 (582.5) 거주되는 세계들에서 물질아들들과 딸들은 그들 자신의 동산 주택들을 세우는데, 자기들 자신의 자녀들에 의해 곧 도움을 받는다. 정원의 위치는 대개 행성영주에 의해 선정되어 왔으며, 그의 유형 참모진은 원주민 종족들 중 비교적 높은 유형들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함께 준비하는 예비 작업에 많이 참여한다.

51:3.2 (583.1) 이 에덴의 동산들은 별자리 수도인 에덴시아에 경의를 표하여 그렇게 명명되며, 그들이 지고자 아버지들의 본부 세계의 장엄한 식물들을 본 따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동산 주택들은 대개 세상에서 격리된 구역 그리고 회귀선-근처 지역에 위치한다. 그것들은 평균적인 세계에서 볼 때 경이로운 창조계들이다. 너희는 유란시아에서 이루어졌던 도중에

성장이 멈춘 단편적인 평가에 의해서는 이 아름다운 문화 중심지들을 전혀 판단할 수 없다.

51:3.3 (583.2) 행성 아담과 이브는 잠재로 볼 때 필사 종족들에 대한 육체적 은혜의 총만한 선물이다. 외부로부터 온 그러한 한 쌍의 주요 업무는 시간의 자녀들을 배가시키고 제고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동산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즉시적인 상호적 번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여러 세대들 동안 아담과 이브는 진화적 필사자들로부터 생물학적으로 격리된 상태에 남아 있는 한편 그들 계층에 속하는 강력한 종족을 이룩한다. 이것이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의 보라색 종족들의 기원이다.

51:3.4 (583.3) 종족 증진을 위한 계획들은 행성영주와 그의 참모진에 의해 준비되며 아담과 이브에 의해 실행된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의 물질아들과 그의 동행자들이 유란시아에 도착하였을 때 큰 불이익에 놓이게 된 장소이다. 칼리가스티아는 아담의-임무에 교활하고도 효력적인 저항을 제공하였다; 유란시아의 멜기세덱 접수자들이 반역적인 행성영주의 현존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는 행성 위험들에 관해 아담과 이브 둘 모두에게

이미 충분히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역의 원흉은 의지적인 전략에 의해 에덴 부부의 허를 찔렀으며 그들을 덫에 걸리게 하여 너희들 세계의 가시적인 통치자들과 그들의 위탁 계약을 파기하게 만들었다. 반역의 행성영주는 너희의 아담과 이브와 타협하는 일에 성공하였지만, 그들을 루시퍼 반란에 참여시키려는 시도에서는 실패하였다.

51:3.5 (583.4) 행성 조력자들인 다섯 번째 계층의 천사들이 아담의-임무에 배속되는데, 행성 아담들의 세계 모험 여행에 있어서 항상 동반한다. 처음에 배정된 무리단은 대개 약 10만 명이다. 유란시아 아담과 이브의 활동이 조급하게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규정된 계획으로부터 이탈되었을 때, 비난받을만한 그들의 행위성에 관하여 그들을 꾸짖은 것은 동산의 세라핌천사 음성들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너희의 이야기에서, 너희의 행성 전승들이 초자연적인 모든 것을 주 하느님께 돌리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풍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것 때문에, 유란시아인들은 우주 아버지의 본성에 관하여 혼동되어 왔는데, 이는 모든 그의 연관-동료들과 권속들의 말들과 행위들을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그에

대한 속성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아담과 이브의 경우에, 동산의 천사는 다름 아닌 바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행성 조력자들의 우두머리였다. 이 세라핌천사, 솔로니아는 신성한 계획의 실패를 선언하고 그리고 멜기세덱 접수자들이 유란시아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였다.

51:3.6 (583.5) 2차 중도 창조체들은 아담의-임무에 대하여 토착적이다. 행성영주의 유형 참모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물질아들들과 딸들의 후손들은 두 계층이 있다: 즉 그들의 육체적 자녀들과 2차 계층의 중도 창조체들이다. 물질적이지만 대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행성 사명활동자들은 문명의 진보에 크게 이바지 하며,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적인 발전과 영적 진보를 오히려 파괴하려고 애쓸 수도 있는 순종하지 않는 소수의 존재들을 굴복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

51:3.7 (583.6) 2차 중도자들은 1차 계층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은 행성영주가 도착될 무렵에 시작되었다. 유란시아의 경우 비교적 초기의 이 중도 창조체들 중 대부분은 칼리가스티아와 함께 반역에 가담하였으며

오순절 이래로 억류되어 왔다. 행성 관리-행정에 충성하기를 거부하였던 아담의-집단 중 대부분 역시 비슷하게 억류되어 있다.

51:3.8 (584.1) 오순절 날, 충성스러운 1차와 2차 중도자들은 자발적인 연합이 발효되었고 그 후로 계속 세계적 관련사들에서 한 단체로 기능해 오고 있다. 그들은 두 집단들로부터 교대로 선택된 충성스러운 중도자들의 통솔을 받고 있다.

51:3.9 (584.2) 너희의 세계는 아들관계의 네 계층들에 의해 방문을 받아 왔다: 칼리가스티아, 행성영주; 하느님의 물질아들들인 아담과 이브; 아브라함 시대의 “살렘의 현자(賢者)”, 마키벤타 멜기세덱; 그리고 파라다이스 증여 아들로써 왔던 그리스도 미가엘. 네바돈 우주의 최극 통치자인 미가엘이, 증여된 아들의 필생의 사업과 임무를 매우 많이 증진시킬 수 있는 충성스럽고도 유능한 행성영주와 헌신되고 성공적인 물질아들, 그 둘 모두에 의해 환영을 받을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더 효력이 있고 아름다웠겠는가! 그러나 모든 세계들이 유란시아처럼 불행했던 것은 아니며, 뿐만 아니라 행성 아담들의 임무가

항상 그토록 어렵고 위험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성공하였을 때, 그들은 위대한 민족이 발달되도록 기여하며, 한 세계가 빛과 생명 속에 안주하는 시대로 들어가기까지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행성의 관련사들에 대해 눈에 보이는 우두머리로서 이어간다.

제 4 장. 여섯 진화 종족

51:4.1 (584.3) 거주되는 세계들의 초기 시대 동안 우세하였던 종족은 적색인인데, 그들은 통상적으로 발달에서 인간 차원을 달성하는 첫 번째이다. 적색인이 행성들의 선임 종족이지만 한편으로는 뒤를 있는 유색인(有色人)들은 필사자 창발의 시대에서 아주 초기에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51:4.2 (584.4) 비교적 초기 종족들은 후기의 종족들보다 어느 정도 우월하다; 적색인은 남색—흑색 인종—보다 훨씬 뛰어나다. 생명운반자들은 최초의 즉, 적색의 인종에게 충만한 살아있는 에너지들의 증여를 나누어주었으며, 그리고 필사자의 다른 유별난 집단의 이어지는 각각의 진화적 현시활동은 기원적인 수여자질을 희생하고 얻는 변화임을 뜻한다. 유란시아에서 예기치 않던 거인종의

유전인자가 녹색과 오렌지색 종족 사이에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필사자의 키는 적색인부터 남색 종족에 이르기까지 점점 줄어들었다.

51:4.3 (584.5) 여섯 개의 진화적 종족들을 모두 갖고 있는 세계들에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종족들—적색, 황색, 그리고 청색—이 우세하다. 진화적 인종들은 지적 성장과 영적 발달에 대한 능력이 그렇게 교차하고 있는데, 두 번째와 네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느 정도 자질로서 부여받았다. 이 2차 인종들은 어떤 세계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많은 다른 곳들에서 이미 멸종되었다. 유란시아에서 너희의 우월한 청색인들이 혼혈된 “백색 종족” 안에 잔존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너희가 그들을 그토록 많이 잃은 것은 하나의 불행이다. 오렌지색과 녹색 혈통의 손실은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못 된다.

51:4.4 (584.6) 여섯—또는 셋—유색 인종들의 진화는, 적색인의 기원적 자질이 악화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필사자 유형들 속에 매우 바람직한 어떤 변화들을 제공하고 다양한 인간적 잠재들의 달성하기 힘든 다른 형식을

제공한다. 이 변화들은 그들이 수입된 아담의-종족 또는 보라색 종족에 의해 나중에 증진되었다면 전체적으로 인류의 진보에 유익이 되었을 것이다. 유란시아의 경우 이 평범한 혼합 계획이 광대하게 수행되지 못하였으며, 종족 진화 계획 수행에 있어서의 이 실패는 너희들 세계에 있는 이 초기적 종족들의 후손들을 봄으로써 평균적인 거주 행성에서의 이 민족들의 지위에 대해 너희가 매우 많이 아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51:4.5 (585.1) 인종적 발달의 초기 시대에 적색과 황색 그리고 청색 인종이 서로 피를 나누는 경향이 약간 있다; 오렌지색과 녹색 그리고 남색 인종들이 서로 섞이는 비슷한 경향이 있다.

51:4.6 (585.2) 비교적 진보가 늦은 인간들은 대개 비교적 더 많이 진보된 인종들에 의해 노동자들로 채용된다. 이것이 초기 시대에 행성들에서 노예제도가 기원된 것을 설명한다. 오렌지색 사람들은 대개 적색 종족에 의해 정복되었고 하인의 지위로 격하되었다—때로는 멸절되었다. 황색인과 적색인들은 종종 형제우애를 가지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황색 종족은 대개 녹색 인종을 노예로 삼는 반면,

청색인은 남색인을 정복한다. 이들 원시인의 종족들은 유란시아인들이 말이나 가축을 사고팔듯이 뒤떨어진 그들 동료들의 봉사를, 강제로 부려먹는 노동에 활용하는 것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51:4.7 (585.3) 정신적 결함과 사회적 불이행이 여전히 부득이한 노동의 억지 이행을 종종 필요로 하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세계들의 경우 부득이한 강제노동은 행성영주의 시대에 잔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정상적 구체들의 경우 이러한 종류의 원시적 노예제도는 수입된 보라색 종족 또는 아담의-종족이 도착된 후에 사라진다.

51:4.8 (585.4) 진화하는 이들 여섯 종족은 아담의-제고자들의 자손들과의 혼혈에 의하여 섞이고 고양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민족들이 섞여지기 전에, 열등하고 부적합한 자들은 대규모로 제거된다. 행성영주와 물질아들은, 다른 적절한 행성 권한자들과 함께, 재생산 혈통들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결을 내린다. 그러한 급진적 계획이 유란시아에서 수행됨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너희 세계 종족들의 개별존재의 생물학적 적합성이나 부적합성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유능한 재판관들이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주 두드러지게 부적합하고, 결함이 있고, 퇴보되고, 그리고 반사회적인 혈통들의 생물학적 자격을 박탈하는 데에 동의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 5 장. 종족적 혼합—아담의 피의 증여

51:5.1 (585.5) 행성 아담과 이브가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지능존재들의 존재하고 있는 종족들의 개선에 최고의 방법으로 효과를 주도록, 그들의 상급자들에 의해 충분한 교육을 이미 받았다. 진행 계획을 획일적이지 않는다; 대부분은 사명활동하는 부부의 판단에 맡겨져 있고, 특별히 유란시아의 경우와 같은 무질서하고, 반란을 일으킨 세계들의 경우에는 오류들이 종종 발생된다.

51:5.2 (585.6) 보라색 인종들은 대개 그들 자체 집단의 수가 100만 명이 넘기 전까지는 행성 원주민들과의 혼혈을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동안에 행성영주의 참모진은 하느님들의 자녀들이, 그들이 왔던 것처럼, 사람 종족들 중 하나가 되기 위하여 내려와 있음을 선언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월한 인종적 혈통에 속함에 따라 분별화되는

자들이 에덴동산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혼합된 인류 계층의 진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담의 아들과 딸들에 의해 선택된다는 것이 공표될 그 날을 갈망하며 기다린다.

51:5.3 (585.7) 정상적인 세계들의 경우 행성 아담과 이브는 진화 종족들과 결코 결혼하지 않는다. 생물학적으로 개선시키는 이 작업은 아담의-자손의 기능이다. 그러나 이들 아담-사람들이 종족들 가운데로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다; 영주의 참모들이 아담의-후손들과의 자발적인 결혼을 위해 우월한 남녀들을 에덴동산으로 데려온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계들에서는 동산의 아들들 그리고 딸들과 결혼할 수 있는 후보로 선택되는 것이 최고의 영광으로 간주된다.

51:5.4 (586.1) 세계 종족들이 동산에 들어가도록 인정받고 그리고 입장하는 자격을 갖추려고 점점 더 분투하는 동안, 종족간의 전쟁과 다른 부족 간 갈등들이 처음으로 감소된다. 경쟁하는 이 갈등이 정상적인 행성에서의 모든 활동들의 중심을 어떻게 점령하게 되었는지 너희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의 알 수 없을 것이다. 종족 개선에

있어서의 이 전체적 설계는 유란시아에서 일찍부터 좌절되었다.

51:5.5 (586.2) 보라색 인종은 일부일처제의 민족이며, 아담의-아들들과 그리고 딸들과 연합한 각각의 진화적 남자 또는 여자는 다른 배우자들을 취하지 않기로 그리고 그의 또는 그녀의 자녀들도 한번-결혼하도록 가르치기로 맹세한다. 이렇게 연합된 각각의 자녀들은 행성영주의 학교들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며 그 다음에는 그들의 진화적 부모의 종족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우월한 필사자들의 선택된 집단들 가운데에서 결혼하도록 허용된다.

51:5.6 (586.3) 물질아들들의 이 혈통이 세계들의 진화하는 인종들에게 덧붙여졌을 때, 새롭고도 더욱 위대한 진화적 진보의 시대가 시작된다. 수입된 능력과 초(超)진화 특색이 부여된 이 출산 능력에 뒤따라서, 문명화에 있어서의 계속적인 빠른 발전과 인종적 발달이 일어나며; 그 이전에 투쟁하던 100만 년 동안 일어났던 진보보다 더 많은 것들이 10만년 동안에 발생된다. 너희들 세계의 경우, 심지어는 규정된 계획들의 실패에 직면해서도, 아담의

생명 원형질이 너희 민족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후로
위대한 진보가 이루어져 왔다.

51:5.7 (586.4) 그러나 행성 에덴동산의 순수 혈통 자손들이 그들
자신을 진화적 인종들 중 우월한 사람들에게 증여할 수
있고 그리하여 인류의 생물학적 차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반면, 유란시아 필사자들 중 비교적 높은 혈통들이 비교적
저급한 인종들과 결혼하는 일은 유익한 것으로 판명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현명치 못한 과정은 너희들 세계에
있는 모든 시민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아담의-기법에
의해 인종의 조화를 성취하는 것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인종 개선에 대한 너희 행성의 문제에서 적응과
통제에서의 다른 방법 그리고 주로 인간적인 방법들에
의해 지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6 장. 에덴의 체제

51:6.1 (586.5) 거주되는 세계들 대부분의 경우에 에덴동산들은
우수한 문화적 중심지로서 남아 있으며 행성 행위성의
사회적 원형틀과 관례로서 여러 시대 동안 계속 기능을
발휘한다. 보라색 민족들이 상대적으로 격리된
초기시대의 경우에도, 그들의 학교들은 세계

종족들로부터 합당한 후보자들을 받아들이며, 동시에 동산의 산업발달은 상업적 왕래의 새로운 통로들을 개설한다. 그리하여 아담들과 이브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문화의 갑작스러운 확대에 기여하고 그들의 세계들의 진화적인 인종들의 빠른 개선에 기여한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들은 진화 종족들과 아담의 아들들의 혼합에 의해 증강되고 보증되는데, 그 결과로 생물학적 지위의 즉각적인 증진, 지적 잠재의 갱생, 영적 접수성의 증진이 발생된다.

51:6.2 (586.6) 정상적인 세계들의 경우에 보라색 인종의 동산 본부들은 세계 문화의 2차 중심지가 되며, 그리고 행성영주의 본부 도시와 공동으로, 문명화의 발달을 위한 속도를 정한다. 여러 세기들 동안 행성영주의 도시 본부 학교들과 아담 그리고 이브의 동산 학교들이 함께 존재한다. 그들은 대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조화로운 협동 속에서 함께 일한다.

51:6.3 (587.1) 중단되지 않고 37,000년 동안 기능을 발휘해 온, 문명화의 세계 중심지, 위대한 행성 문화 대학이 레반트 지역 어딘가에 있었다면, 그것이 너희 세계에 무엇을

의미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다시, 천상의 사명활동을 베푸는 또 다른 그리고 더 오래된 본부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500,000년 동안 집대성된 진화적 영향을 발휘해온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비록 그러한 고대의 중심지라 할지라도 어떻게 도덕적 권한이 강화될 것인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라. 에덴의 이상이 결국에는 온 세계에 퍼지는 것이 관행이다.

51:6.4 (587.2) 행성영주의 학교들은 철학, 종교, 도덕, 그리고 좀 더 높은 지적 그리고 예술적 성취들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둔다. 아담과 이브의 동산 학교들은 대개 실천적인 예술, 기초적인 지적 훈련, 사회적 문화, 경제 발달, 교역 관계, 물리적 효율성, 그리고 시민 정부에 관여한다. 결국에는 이들 세계 중심들이 혼합되지만, 실재적인 이 합병은 첫 번째 치안법관 아들의 시대까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51:6.5 (587.3) 행성 아담과 이브의 계속적인 실존은, 보라색 인종의 순수-혈통 핵과 함께, 전통이라는 강제적인 기세로 세계의 문명화에서 작용하게 됨으로써 에덴의 문화에 성장의 안정성을 부여한다. 이 불멸의 물질아들들과 딸들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최종적이고도 필수불가결한 고리를 만나는데, 영원한 창조자와 시간의 가장 낮은 유한 개인성들 사이를 연결시킨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이며 심지어는 유란시아 필사자들처럼 성적 창조체인 존재가 여기에 있고,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행성영주를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영역의 필사 창조체들에게 그의 말을 통역하는데, 왜냐하면 물질아들들과 딸들은 영 존재들 중 비교적 낮은 계층들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는 행성영주 그리고 그의 전체 참모진을 눈에 보이게 한다.

51:6.6 (587.4) 세기들이 지나감에 따라, 그들의 자손이 사람들의 종족들과 혼합됨을 통하여, 동일한 이 물질아들과 딸은 인류의 공통 조상들, 진화적 인종들 중 이제 피가 섞인 후손들의 공통 부모들로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거주민이 사는 세계로부터 시작된 필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일곱 아버지들을 인식하는 체험을 갖도록 계획되어 있다:

51:6.7 (587.5) 1. 생물학적 아버지—육신에서의 아버지.

51:6.8 (587.6) 2. 영역의 아버지—행성 아담.

51:6.9 (587.7) 3. 구체들의 아버지—체계 주권자.

51:6.10 (587.8) 4. 지고자 아버지—별자리 아버지.

51:6.11 (587.9) 5. 우주의 아버지—창조자 아들 그리고 지역 창조계의 최극 통치자.

51:6.12 (587.10) 6. 초(超)-아버지들—초우주를 통치하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

51:6.13 (587.11) 7. 영 또는 하보나 아버지—우주 아버지, 파라다이스에 거하시고 우주들의 우주에서 사는 낮은 창조체들의 마음속에서 살면서 일하도록 자신의 영을 증여하는 분.

제 7 장. 연합된 관리-행정

51:7.1 (587.12) 때때로 파라다이스의 아보날 아들이 심판 활동을 위해 거주민이 사는 세계로 오지만, 치안법관 임무를 띤 첫 번째 아보날은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에 네 번째 세대가 시작되게 한다. 이 치안법관 아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어떤 행성들에서는, 그가 한 시대 동안 남아 있다; 그래서 행성은 세 아들들의 공동 통치 아래에서 번영한다: 행성영주, 물질아들, 그리고 치안법관

아들, 마지막 두 존재는 영역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의 눈에 보인다.

51:7.2 (588.1) 첫 번째 치안법관 아들이 정상적인 진화적 세계에서 그의 임무를 마치기 전에, 행성영주와 물질아들의 교육적이고 관리-행정적인 일들의 연합은 효력적으로 되어져 왔다. 행성의 이원적(二元的) 감독의 이러한 혼혈은 세계 관리-행정의 새롭고도 효력적인 질서가 실존하도록 해준다. 치안법관 아들이 은퇴함에 따라 행성 아담은 구체의 외부로 향한 지도를 시작한다. 물질아들과 딸은 세계가 빛과 생명의 시대에 안주할 때까지 행성 관리-행정자들로써 공동으로 그렇게 활동한다; 그렇게 되면 행성영주는 행성주권자의 지위로 승진된다. 진보된 진화의 이 시대 동안, 아담과 이브는 영화롭게 된 영역의, 이름으로 불리운다면, 공동 수상이 된다.

51:7.3 (588.2) 진화하는 세계의 새롭고도 통합된 수도가 잘 수립되자마자, 그리고 유능한 하급 행정-관리자들이 적당하게 훈련을 받는 것과 같은 빠르기로, 위성 수도들이 멀리 있는 땅에 그리고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 건설된다.

다른 세대적 아들이 도착하기 전에, 50개에서 100개에 이르는 이 부차적 중심지들이 조직될 것이다.

51:7.4 (588.3) 행성영주와 그의 참모진은 여전히 영적 그리고 철학적 활동 권역들을 육성한다. 아담과 이브는 영역의 물리적, 과학적, 그리고 경제적 지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두 집단들은 예술과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지적 성취들의 중진에 그들의 에너지를 동등하게 바친다.

51:7.5 (588.4) 세계 관련사들의 5번째 세대가 시작될 때까지, 행성 활동들에 대한 장엄한 관리-행정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한 잘-운영되는 구체에 있는 필사자 실존은 정말로 활기를 띠고 유익하다. 그리고 만일 유란시아인들이 그러한 행성에서의 삶을 관측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세계가 악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반역에 가담함으로써 잃어버렸던 그것들의 가치를 즉시 인정하게 될 것이다.

51:7.6 (588.5) [예비무리단의 2차 라노난덱 아들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52 편 행성 필사자 신(新)시대

52:0.1 (589.1) 진화적 행성에서 생명이 발단된 이후부터 빛과 생명 속에서 최종적인 꽃을 피우는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활동의 단계에는 최소한 일곱 가지 신(新)시대들의 인간 삶이 나타난다. 연속되는 이 시대들은 신성한 아들들의 행성 임무들에 의해 결정되며, 평균적인 거주 세계들의 경우 이 시대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타난다:

52:0.2 (589.2) 1. 행성영주-이전(以前) 사람.

52:0.3 (589.3) 2. 행성영주-이후(以後) 사람.

52:0.4 (589.4) 3. 아담의-이후 사람.

52:0.5 (589.5) 4. 치안법관 아들-이후 사람.

52:0.6 (589.6) 5. 증여 아들-이후 사람.

52:0.7 (589.7) 6. 교사 아들-이후 사람.

52:0.8 (589.8) 7. 빛과 생명의 시대.

52:0.9 (589.9) 우주에 있는 세계들은, 그들이 물질적으로 생명에 적합하게 되는 순간, 생명운반자들에게 등록되며, 때가 되면 이 아들들이 생명을 창시할 목적으로 그러한 행성들에게 보내진다. 생명이 시작된 때부터 사람이

출현하기까지의 전체 기간은 인간-이전 시대로 구분되며 이 이야기 안에서 고려되는 연속적인 필사자 신(新)시대들을 앞선다.

제 1 장. 원시인

52:1.1 (589.3) 동물 차원으로부터 사람이 창발한 때—그가 창조자를 경배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때—로부터 행성영주가 도착할 때까지, 필사자 의지 창조체들은 원시인이라고 불린다. 원시인에는 여섯 가지 기본 유형 또는 종족들이 있으며, 초기의 이 민족들은 스펙트럼 색조의 순서에 따라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적색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초기 생명 진화에 소요되는 시간의 길이는 세계들마다 크게 다른데, 유란시아 시간으로 15만년부터 100만년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52:1.2 (589.4) 진화하는 유색 인종들—적색, 오렌지색, 황색, 녹색, 청색, 남색—은 대략적으로 원시인이 간단한 언어를 발전시킬 때 그리고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때 사람은 똑바로 서는 데에 익숙해 있다.

52:1.3 (589.5)

원시인은 힘센 사냥꾼이요 사나운 투사이다. 이 시대의 법칙은 물리적 적자생존(適者生存)이다; 이 시대의 정치 체제는 전적으로 부족적(部族的)이다. 많은 세계들의 경우, 유란시아에서 발생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초기의 인종적 투쟁이 계속되는 동안 진화 종족들 중 일부가 멸종된다. 살아남은 종족들은 대개 그 후에 아담의-민족들, 나중에 수입되는 보라색 종족들과 섞인다.

52:1.4 (589.6)

뒤이어 따라오는 문명에 비취어 볼 때, 이 원시인 시대는 길고 어두우며 피로 물든 장(章)이다. 밀림의 윤리와 원시산림의 도덕은 계시된 종교와 보다 높은 영적 발달의 후기 섭리시대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 정상적이고 실험적인-아닌 세계들의 경우, 이 신(新)시대는 유란시아에서의 이 시기의 특징을 이루는 길고도 유별나게 혹독한 투쟁과 매우 다르다. 너희가 자신의 최초 세상 체험으로부터 일단 벗어나게 되면, 너희는 진화 세계들에서의 이 길고도 고통스러운 투쟁의 이유를 보기 시작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파라다이스 경로를 따라 전진함에 따라 너희는 겉으로 보기에 생소한 이 행위들의 지혜를 점점 더 납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창발한 초기 시대들의 모든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원시인의

업적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진화 세계의 연대기(年代記) 속에서 찬란한 그리고 심지어 영웅적인 한 장(章)을 대표한다.

52:1.5 (590.1) 초기 진화에서는 사람이 유색의 창조체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 원시적 필사자들은 동굴에 거주하거나 절벽에서 산다. 또한 그들은 큰 나무에 조잡한 오두막을 짓기도 한다. 그들이 높은 계층의 지성을 획득하기 전에는, 행성들이 비교적 큰 유형의 동물들의 지배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시대 초기에 인간들은 불을 붙이고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며, 독창적인 상상력의 증가와 도구의 개발과 함께, 진화하는 사람은 곧 비교적 크고 더욱 다루기 힘든 동물들을 정복하게 된다. 또한 초기 종족들은 비교적 큰 날아다니는 동물들을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이 거대한 새들은 한 명 또는 두 명의 보통-크기 사람들을 쉬지 않고 500마일 이상 운송할 수 있다. 어떤 행성들의 경우 이 새들은 그들이 높은 계층의 지능을 소유하는 때부터 큰 서비스에 활용하는데, 영역의 언어들 중 여러 말들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새들은 가장 지능적이고, 매우 유순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애롭다. 그러한 여객용

새들은 유란시아에서 사라진지 오래 되었지만, 너희의 초기 조상들은 그들의 봉사를 즐겼다.

52:1.6 (590.2) 윤리적 판단, 도덕적 의지에 대한 사람의 성취는 대개 초기 언어의 출현과 일치한다. 인간적 차원이 달성되면, 필사자 의지가 이렇게 창발한 후에, 이 존재들은 신성한 조절자들의 일시적 내주(內住)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죽음을 맞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존자로서 정당하게 선택되고 그 다음의 부활과 영 융합을 위해 천사장들에 의해 봉인된다. 천사장들은 항상 행성영주와 같이 오며, 영역의 세대적 판결은 영주의 도착과 동시에 발생한다.

52:1.7 (590.3) 생각 조절자가 내주하는 모든 필사자들은 잠재적 경배자들이다; 그들은 "참 빛에 의해 비추어져"왔고, 그들은 신성과의 상호보답적인 접촉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시인의 초기 또는 생물학적 종교는 주로 무지로 인한 두려움과 부족적 미신이 가미된 동물적 두려움의 연속이다. 유란시아 종족들 속에 미신이 살아 있는 것은 물질적 진보 안에서의 너희의 다른 훌륭한 성취들과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진화적 발달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초기의 이 두려움의 종교는 이 원시적 창조체들의 불같은 기질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가치 있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것은 행성영주와 그의 사명활동자들에 의해 제시된 종교의 씨앗들을 나중에 심기 위한 토양이며 문명화의 선구자이다.

52:1.8 (590.4) 사람이 직립(直立)하게 된 때로부터 10만년 이내에, 행성영주가 도착하는 것이 상례인데, 비교적 소수의 개별존재들이 그렇게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의지가 기능한다는 생명운반자들의 보고에 따라 체계 주권자가 파견한다. 원시 필사자들은 보통 행성영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의 참모진을 환영 한다; 사실 그들은 그들을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그들이 만류하지 않는다면 경배를 드리려고까지 한다.

제 2 장. 행성영주 이후의 사람

52:2.1 (591.1) 행성영주의 도착과 함께 하나의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다. 지구상에 정부가 태어나고 진보된 부족 신(新)시대가 달성된다. 이 체제가 유지되는 수 천 년 동안

위대한 사회적 진보가 이루어진다. 정상적인 조건아래에서의 필사자들은 이 시기 동안 문명의 높은 상태에 도달한다. 그들은 유란시아 종족들이 했던 것과는 달리 야만 상태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거주민이 사는 세계의 생명이 반역에 의해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는 정상적인 행성에 있는 그러한 체제에 관한 개념을 전혀 또는 거의 가질 수 없다.

52:2.2 (591.2) 이 세대의 평균 길이는 약 50만년인데, 어떤 경우는 좀 더 길고, 어떤 경우는 좀 더 짧다. 이 시기 동안 행성은 체계의 순환회로들 안에 정착하며, 세라핌천사 그리고 다른 천상의 조력자들의 할당된 숫자 전체가 그것에 대한 관리-행정에 배정된다. 생각 조절자들이 점점 더 많이 도래하고, 세라핌천사 수호자들은 필사자 감독에 대한 그들의 체제를 확장시킨다.

52:2.3 (591.3) 행성영주가 원시 세계에 도착할 때, 두려움과 무지의 진화된 종교가 널리 퍼진다. 영주와 그의 참모진은 좀 더 높은 진리와 우주 조직에 관한 첫 번째 계시를 준다. 계시된 종교에 관한 이 첫 번째 제시는 매우 단순하며, 그것들은 보통 지역체계의 관련사들에 국한되어 있다.

종교는 전적으로 행성영주의 도착 이전의 진화적 과정이다. 그 후에 종교는 누진적인 계시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진화적 성장에 의해 진보한다. 각각의 섭리시대, 각각의 필사자 신(新)시대는 영적 진리와 종교적 윤리의 더욱 커지게 된 표현을 받아들인다. 세계에 거주하는 사람들 속에서의 종교적 접수성의 수용능력의 진화는 영적 발전에 대한 그들의 비율과 종교적 계시의 범위를 주로 결정한다.

52:2.4 (591.4) 이 섭리시대는 하나의 영적 여명을 목격하며, 그리고 다른 종족들과 그들의 다양한 부족들이 종교적 그리고 철학적 생각에서의 특별화된 체계들을 발달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 모든 종족 종교들에 두루 두개의 기질이 한결같이 흐른다: 원시인의 초기적인 두려움과 이후의 행성영주의 후대 계시들이다. 어떤 면에 있어서 유란시아인들은 행성 진보의 이 단계에서 벗어나 총체적으로 창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너희가 이 공부를 추적하면서 그에 따라, 너희 세계가 진화적인 진보와 발달에서의 평균 과정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너희는 점점 더 분명하게 식별하게 될 것이다.

52:2.5 (591.5) 그러나 행성영주는 “평화의 영주”가 아니다. 인종 투쟁들과 부족 전쟁들은 이 세대 동안 계속되지만, 횡수와 심각성은 줄어든다. 이것은 인종 확산의 위대한 시대이며, 그것은 격렬한 민족주의 시대의 정점을 이룬다. 색깔은 부족 그리고 민족 집단화의 기본이며, 인종들마다 다른 언어들을 발달시키곤 한다. 각각의 확대하는 필사자 집단은 고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분리는 많은 언어들의 실존에 의해 장려된다. 여러 인종들의 통일이 있기 전에 그들의 잔인한 전쟁은 때로 전체 민족들의 소멸을 초래하기도 한다; 오렌지색과 녹색 사람들은 특별히 그러한 소멸에 해당된다.

52:2.6 (591.6) 평균적인 세계들의 경우, 영주의 통치 후반부 동안, 국가적 생활이 부족적 조직을 대체하거나 또는 존재하는 부족적 집단화에 첨가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영주의 신(新)시대의 위대한 사회적 성취는 가정생활의 창발이다. 이전까지는 인간관계들이 주로 부족적이었지만; 이제는, 가정이 형태를 갖추어지기 시작한다.

52:2.7 (591.7) 이것은 성(性)적 평등 실현의 세대이다. 어떤 행성들의 경우 남자가 여자를 지배할 수 있다; 또 다른 행성들에서는 그 반대로 나타난다. 이 시대 동안 정상적인 세계들은 성(性)의 충분한 평등을 이룩하는데, 이것은 가정생활의 이상을 보다 더욱 충분하게 실현하는 것에 예비수단이 된다. 이것은 가정의 황금기의 여명이다. 종족 통치의 개념은 민족 생활과 가정생활의 이원적(二元的) 개념에게 점진적으로 길을 내어준다.

52:2.8 (592.1) 이 시기 동안에 농업이 모습을 드러낸다. 가족 개념의 성장은 사냥꾼의 방랑과 불안정한 생활과 양립할 수 없다. 안정된 거주지들과 땅 경작의 실천 관행이 점차적으로 수립된다. 동물을 길들이기와 가사(家事)의 발달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생물학적 진화의 정상에 도달하면, 문명화의 높은 차원이 달성되지만, 기계 계층의 발달은 거의 없으며; 발명은 계속되는 시대의 특징이다.

52:2.9 (592.2) 인종들은 세련된 상태가 되고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육체적 완전과 지적 능력의 높은 상태로 올라간다. 정상적인 세계의 초기 발달은 비교적 낮은 유형의 필사자들의 균형 잡힌 감소와 함께 비교적 높은 유형의

필사자들의 증가를 진행시키는 계획에 의해 크게 도움을 받는다. 너희 초기 민족들이 이들 유형들을 것처럼 구별하는 것에 실패하였다는 것이, 지금-현재 유란시아 종족들 사이에 그렇게 많은 결함이 있고 퇴보하는 개별존재들이 현존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52:2.10 (592.3) 영주의 시대의 위대한 업적들 중 하나는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고 사회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개별존재들의 증가에 대한 이러한 제한이다. 두 번째 아들들, 아담들의 도착 훨씬 이전에, 대부분의 세계들은 종족 정화의 임무에 심각하게 착수하는데, 유란시아 사람들은 아직 심각하게 체험하지 못한 어떤 것이다.

52:2.11 (592.4) 종족 개선의 이러한 문제는 공격을 받게 되는 인간 진화에서의 이러한 초기 시대에는 그렇게 세밀하게 수행되지는 않는다. 부족 갈등과 인종 생존에서의 역센 경쟁이 있는 이전의 시대는 비정상적이고 불완전한 혈통들 대부분을 제거해 왔다. 바보는 원시적이고 전쟁이 계속되는 부족적 사회 조직 안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진화하는 인간 종족들 중 희망 없는 결함을 가진

혈통을 육성하고 보호하며 영속시키는 것은 부분적으로
완전하게 된 너희 문명의 잘못된 정서이다.

52:2.12 (592.5) 퇴보된 인간 존재들, 구제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도 열등한 필사자들에게 쓸데없는 동정심을
기울이는 일은 애정도 아니고 이타심도 아니다. 가장
정상적인 진화 세계들에서도 개별존재들 사이에 그리고
진화하는 인간성을 가진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사람들과
도덕적으로 퇴보된 혈통들을 존속시키지 않으면서
이타적인 정서와 사심-없는 필사자 사명활동을 하는 모든
고귀한 특색들의 충만한 실행을 위해 제공되는 수많은
사회적 집단들 사이에 많은 차이들이 존재한다. 자신들의
도덕적 유산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실하고 자신들의
영적 권리를 언제까지나 파괴당한 불운하고도 가난한
개별존재들을 위하여 인내심을 실천하고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제 3 장. 아담-이후의 사람

52:3.1 (592.6) 진화적 삶의 기원적 힘이 그것의 생물학적 과정을
진행할 때, 사람이 동물적 발달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아들관계의 두 번째 계층이 도착하며, 은혜와 보살핌의 두

번째 세대가 시작된다. 이것은 모든 진화 세계들에게 해당된다. 진화적 생명의 가능한 최고 차원이 달성되었을 때, 원시인이 생물학적 척도에 있어서 가능한 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한 물질아들과 딸이 행성에 항상 나타나는데, 체계 주권자에 의해 보냄을 받는다.

52:3.2 (593.1) 생각 조절자들이 아담의-이후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많이 증여되며, 이 필사자들 중 끊임없이 증강되는 숫자가 그 후의 조절자 융합을 위한 능력을 달성한다. 하강하는 아들들로서 활동하는 동안, 아담들은 조절자들을 소유하지 않지만, 그들의 행성 자손들—직접적인 그리고 섞인—은 때가 되면 신비 감시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합법적인 후보자들이 된다. 아담의-이후 시대가 종료되면 행성은 천상의 사명활동자들의 충분한 소유가 된다; 오직 융합 조절자들만이 아직 우주적으로 증여되지 않았다.

52:3.3 (593.2) 문명화에 있어서 사냥꾼 그리고 목자(牧者)의 단계로부터 농업 그리고 원예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완성하도록 진화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그리하여 나중에 도시 그리고 산업 보조물이 문명화에 추가되는 것이 아담의-통치체제의 1차 목적이다. 생물학적

제고자들의 이 세대에 해당하는 1만년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행성영주와 물질아들들의 공동 지혜의 그러한 관리-행정에 해당되는 2만 5천년은 보통 치안법관 아들의 출현을 위하여 구체를 무르익게 한다.

52:3.4 (593.3) 이 시대에는 대개 부적합한 자들의 제거와 인종적 혈통들에 대한 더욱 증진된 정화 작업의 완성이 있게 된다; 정상적인 세계들의 경우 결점이 있는 야만적 경향들이 영역의 재생산하는 계통들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제거된다.

52:3.5 (593.4) 아담의-자손은 진화적 인종들 중 열등한 혈통들과는 결코 피를 섞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행성 아담 또는 이브가 진화적 민족들과 개인적으로 결혼하는 것은 신성한 계획이 아니다. 이 인종-개선 계획은 그들의 후손의 임무이다. 그러나 물질아들과 딸의 후손은 인종적-혼합 사명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 세대 동안 동원된다.

52:3.6 (593.5) 필사 종족들에게 아담의-생명 원형질이 선물로 주어진 결과는 지적 능력의 즉각적인 향상과 영적 진보의 촉진이다. 거기에는 대개 어떤 육신적 증진도 따라온다. 평균적인 세계의 경우 아담의-이후 세대는 위대한 발명과

에너지 통제 그리고 기계적 발달의 시대이다. 이때는 여러 형태의 제조업의 출현과 천연적 힘들에 대한 통제의 시대이다; 행성의 탐험과 최종적 정복의 황금기이다. 세계의 물질적 진보 대부분은 물질적 과학의 발달이 시작되는 이 시기 동안 발생되는데, 유란시아가 현재 체험하는 것과 같은 신(新)시대이다. 너희의 세계는 하나의 충만한 세대이며 평균적인 행성 시간표보다 훨씬 뒤져 있다.

52:3.7 (593.6) 정상적인 행성에서의 아담의-섭리시대가 끝나기 전에 종족들이 실천적으로 혼합되는데, 그리하여 “하느님이 한 피로 모든 나라들을 만들었다”는 말이 정말로 선포될 수 있으며, 그것은 그의 아들이 “한 색으로 모든 민족들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피가 섞인 종족의 색깔은 보라색 바탕에 올리브색이 깃들여 있는 어떤 것, 구체들의 인종적 “백색”이다.

52:3.8 (593.7) 원시인은 주로 육식성이다; 물질아들들과 딸들은 고기를 먹지 않지만, 몇 세대 지나지 않은 그들의 후손들은 때로는 그들의 후예들 전체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로 남아 있더라도 대개 잡식 차원으로 내려간다. 아담의-이후

인종들의 이 이중적 기원은 피가 섞인 그러한 인간 계통들이 어떻게 해서 초식성 동물 집단과 육식성 동물 집단 둘 모두에 속하는 해부학적 흔적을 나타내는지를 설명해 준다.

52:3.9 (593.8) 인종적 혼합이 시작된 지 1만년 이내에, 결과적인 계통들은 해부학적 혼혈의 다양한 정도들을 보여주는데, 어떤 혈통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조상의 흔적을 더 많이 함유하고, 다른 혈통들은 그들의 육식성 진화 조상의 독특한 특색들과 육신적 특징들을 더 많이 나타낸다. 이 세계 종족들 대부분은 곧 잡식성을 갖게 되는데, 동물계와 식물계 둘 모두로부터의 광범위한 음식물들을 섭취한다.

52:3.10 (594.1) 아담의-이후 신(新)시대는 국제주의 세대이다. 인종 혼합의 과업이 거의 완성됨과 함께, 민족주의가 쇠퇴하고 사람의 형제신분이 실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대리 정부가 군주적 또는 부계(父系) 형태의 통치체제를 대신하기 시작한다. 교육 체계가 세계에 퍼지게 되고, 인종들의 언어들이 보라색 민족의 방언에게 양보한다. 보편적 평화와 협동은 인종들이 매우 잘 혼합될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공통 언어를 사용할 때까지
달성되기 힘들다.

52:3.11 (594.2) 아담의-이후 시대의 마감하는 세기들 동안,
예술과 음악 그리고 문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발달하며,
이 범세계적 계몽은 치안법관 아들의 출현에 대한
신호이다. 이 시대의 최고 발달은 지적 실체들, 참된 철학에
대한 보편적 관심이다. 종교는 민족적 특성이 줄어들고
점점 더 행성 문제가 되어 간다. 진리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이 시기들의 특징을 이루며, 별자리들의 지고자들이
사람들의 관련사들을 통치하기 시작한다. 진리는
별자리들의 관리-행정에 이르기까지 계시된다.

52:3.12 (594.3) 위대한 윤리적 진보가 이 시대의 특징이다;
사람의 형제신분이 사회의 목표이다. 범세계적
평화—인종 갈등과 민족적 증오의 중단—은 아들관계의
세 번째 계층, 치안법관 아들의 출현을 위한 행성 성숙의
척도이다.

제 4 장. 치안법관 아들—이후의 사람

52:4.1 (594.4) 정상적이고 충성스러운 행성들의 경우에 이
시대는 피가 섞이고 생물학적으로 적응된 필사 종족들과

함께 시작한다. 거기에는 인종 또는 색깔의 문제들이 없으며; 정말로 모든 나라들과 인종들이 한 피에 속한다. 사람의 형제신분이 번창하고, 나라들은 평화와 평정 속에서 살아가기를 배우고 있다. 그러한 세계는 위대하고 전성기에 달한 지적 발전 벽두에 서 있다.

52:4.2 (594.5) 진화 세계가 그렇게 해서 치안법관 시대를 위해 성숙하게 될 때, 높은 계층의 아보날 아들들 중 하나가 치안법관 임무에 모습을 드러낸다. 행성영주와 물질아들들은 지역우주 기원에 속한다; 치안법관 아들은 파라다이스로부터 온다.

52:4.3 (594.6) 파라다이스 아보날들이 사법 활동을 위해 오직 세대 심판관들로서 필사자 구체들에게로 올 때, 그들은 결코 육신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치안법관 임무들을 띠고 올 때에는, 적어도 처음 한 번은, 그들이 항상 육신화 하는데, 그들은 출생을 체험하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영역의 죽음을 맛보지도 않는다. 그들이 특정 행성에서 통치자로서 남아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여러 세대 동안 살 수도 있다. 그들의 사명이 완료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행성 삶들을 완료하고 신성한 아들관계의 이전 지위로 돌아간다.

52:4.4 (594.7) 각각의 새로운 세대는 계시된 종교의 지평선을 확장하며, 치안법관 아들들은 지역우주 그리고 그것에 소속된 모든 것들의 관련사들을 묘사하기 위해 진리에 대한 계시를 확장한다.

52:4.5 (594.8) 치안법관 아들의 첫 번째 방문 이후에 종족들은 곧 자신들의 경제적 해방을 이룩한다. 어떤 사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상 작업은 너희 시간으로 2시간 30분에 해당한다. 그것은 그러한 윤리적이고 지능적인 필사자들을 해방시키기에 완전히 확실하다. 그러한 세련된 민족들은 자아-개선과 행성 진보를 위해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잘 안다. 이 시대에는 덜 적응되고 미약하게 자질로서 부여받은 개별존재들 가운데 번식을 억제시킴으로써 인종적 계통들의 추가적 정화 작업이 있다.

52:4.6 (595.1) 종족들의 정치적 정부와 사회적 관리-행정이 계속 개선되는데, 자아-관리가 이 시대의 종료와 함께 비교적 잘 수립된다. 자아-관리에 의해 우리는 대리 정부의 가장 높은

유형에 관해 설명한다. 그러한 세계들은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책임들을 이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영도자들과 통치자들만을 승진시키고 경의를 표한다.

52:4.7 (595.2) 이 신(新)시대 동안 세계 필사자들 대부분 속에는 조절자가 내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신성한 감시자들의 증여는 항상 보편적이지 않다. 융합 운명의 조절자들은 아직 모든 행성 필사자들에게 증여되지 않았다; 의지적 창조체들에게는 신비 감시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

52:4.8 (595.3) 이 세대의 마감하는 시대들 동안, 사회는 더욱 단순하게 된 살아가는 형태들로 돌아간다. 진보하는 문명의 복잡한 본성은 그것의 과정 속에서 존재하며, 필사자들은 더 자연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살아가기를 배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이어지는 각각의 신(新)시대마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는 예술과 음악 그리고 더 높은 배움이 꽃피는 시대이다. 물리적 학문들은 최고의 발달 경지에 이미 도달하였다. 이상적인 세계들의 경우 이 시대가 끝날 때 위대한 종교적 각성, 범세계적인 영적 깨우침이 완성된다. 그리고 종족들의

영적 본성들의 이 광범위한 각성은 증여 아들의 도착을 향한 그리고 다섯 번째 필사자 신(新)시대의 출발을 향한 신호이다.

52:4.9 (595.4) 많은 세계들의 경우 행성이 한 명의 치안법관 임무에 의한 증여 아들을 위한 준비가 갖추어지게 된다; 그러한 사건 안에서 치안법관 아들들의 계승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가 있게 되는데, 그 각각은 행성이 증여 아들의 선물을 위해 준비될 때까지 한 세대로부터 다른 세대에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그리고 그 후의 임무들에 있어서 치안법관 아들들은 육신화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치안법관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느냐에 상관없이—그리고 그들은 증여 아들 이후에 그렇게 올 수도 있다—그 각각의 출현은 한 세대의 끝과 다른 세대의 시작을 표시한다.

52:4.10 (595.5) 치안법관 아들들의 이 세대들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2만 5천년부터 5만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 때로는 그러한 신(新)시대가 매우 짧으며 드문 경우에는 더 길기도 하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동일한 이

치안법관 아들들 중 하나가 파라다이스 증여 아들로써 태어나게 될 것이다.

제 5 장. 증여 아들 이후의 사람

52:5.1 (595.6) 지적 그리고 영적 발달의 특정한 기준이 어떤 거주 세계에서 달성될 때, 한 파라다이스 증여 아들이 항상 도착한다. 정상적인 세계들의 경우에 그는 종족들이 지적 발달 그리고 윤리적 달성의 최고 차원들로 상승을 완료할 때까지 육신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유란시아에서는 증여 아들이, 더군다나 너희들 자신을 만든 창조자 아들이, 아담의-섭리시대의 마감에서 나타났지만, 그것은 공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일상적인 순서가 아니다.

52:5.2 (595.7) 세계들이 영성화를 위해 성숙할 때, 증여 아들이 도착한다. 이들 아들들은 치안법관 또는 아보날 계층에 항상 속하는데, 예외인 경우는, 각 지역우주마다 한 번, 진화 세계에서 창조자 아들이 그의 마지막 증여를 준비할 때, 네바돈의 미가엘이 너희 필사 종족들에게 자신을 증여하기 위해 유란시아에 나타났을 때 발생되었던 것과 같은 경우이다. 거의 천만 개 중에서 오직 한 세계만이

그러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다른 세계들은 아보날 계층의 파라다이스 아들의 증여에 의해 영적으로 진보한다.

52:5.3 (595.8) 증여 아들이 높은 교육 문화의 세계에 도착하며, 영적으로 훈련되고 진보된 훈련에 융화되도록 그리고 증여 임무를 인정하도록 준비된 종족과 만난다. 이때는 도덕적 문화와 영적 진리의 전 세계적 추구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시대이다. 이 세대의 도덕적 열정은 조화우주 실체에 대한 통찰이며 영적 실체와의 교제이다. 진리에 대한 계시는 초우주를 포함할 정도까지 확장된다. 교육과 정부의 전반적으로 새로운 체계들이 이전 시대들의 조잡한 체제들을 대체할 정도로 성장한다. 삶에 대한 기쁨이 새로운 색을 띠고, 생명의 반응들이 천상에 이르기까지 고양된 음조와 음색을 갖는다.

52:5.4 (596.1) 증여 아들은 어떤 세계의 필사 종족들의 영적 고양(高揚)을 위해 살다가 죽는다. 그는 “새롭고 그리고 살아있는 길”을 확립 한다; 그의 삶은 파라다이스 진리가 필사 육신으로 육신화된 것이며, 그것은 바로 그것을 아는

것 안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진리—정말로 진리의 영—이다.

52:5.5 (596.2) 유란시아에서 이 “새롭고 그리고 살아있는 길”의 확립은 진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의 문제였다. 루시퍼 반란이 있었을 때의 유란시아 고립은 죽음에 이르러서 필사자들이 맨션세계들의 해안에 직접적으로 이르도록 지나갈 수 있는 과정을 중지도켰다. 그리스도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있던 날들 이전에는 모든 혼들이 섭리시대적 또는 천년마다의 특별 부활 때까지 잠을 잤다. 특별한 부활의 기회가 있기 전에는 심지어는 모세도 다른 편으로 건너가도록 허용되지 않았는데, 몰락한 행성영주, 칼리가스티아는 그러한 해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로는 언제라도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다시 모론시아 구체들에게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52:5.6 (596.3) 그의 증여된 삶을 다 마친 후 세 번째 날에, 증여된 아들의 부활(復活)이 있게 되면, 그는 우주 아버지의 오른 편으로 상승하여, 증여 임무의 승인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며, 지역우주의 본부에 창조자 아들로 돌아온다. 그 결과 증여 아보날과 창조자 미가엘이 그들의 연관 영, 진리의

영을 증여 세계 속으로 보냈다. 이때가 “승리의 아들의 영이 모든 육신에게 부어지는” 기회이다. 우주 어머니 영 역시 진리의 영의 이 증여에 참여하며, 그것과 동시에 생각 조절자들의 증여 명령을 발한다. 그 후로 모든 정상-마음을 가진 그 세계의 의지적 창조체들은 그들이 도덕적 책임, 영적 선택의 나이를 성취하는 대로 조절자들을 받게 될 것이다.

52:5.7 (596.4) 만약에 그러한 증여 아보날이 증여 임무 후에 세계로 돌아와야 한다면, 그는 육신화 되지 않겠지만 “세라핌천사 무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올 것이다.

52:5.8 (596.5) 증여 아들 이후 시대는 1만년부터 10만년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 섭리시대적 연대들 중 그 어떤 것도 독단적으로 할당되는 시간은 없다. 이때는 위대한 윤리적 그리고 영적(靈的) 진보의 시기이다. 이 시대들의 영적인 영향 아래에서, 인간적 성격은 거대한 변혁을 거치고 괄목할만한 발달을 체험한다. 실천적 운영에 황금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예수의 교훈들은, 성격을 고귀하게 하고 문화(文化)를 증강시키는 그들의

섭리시대로 이루어진 증여-이전(以前) 아들들의 예비적 훈련을 마친, 필사자 세계에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52:5.9 (596.6) 이 시대 동안 질병과 범죄의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해결된다. 퇴화(退化)는 이미 선택적 번식에 의해 크게 제거된다. 질병은 아담의-혈통들의 높은 저항 본질특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전 시대들의 물리학이 발견한 지능적 그리고 범세계적 적용에 의해 실천적으로 정복되어 왔다. 이 기간 동안 평균 수명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300년과 맞먹는 정도 이상으로 잘 향상된다.

52:5.10 (597.1) 이 신(新)시대에 두루 정부의 감독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참된 자아-관리가 활동하기 시작 한다; 제한적인 법칙들이 점점 필요 없게 된다. 국가적 저항의 군사 분과들이 사라지며; 국제적 화합의 시대가 실제적으로 도래 한다. 많은 나라들이 있고 대부분이 땅 분배에 의해 결정되지만, 오직 한 종족, 한 언어, 그리고 한 종교만이 있다. 필사자 관련사들은 거의 이상에 가깝지만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의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시대이다!

제 6 장. 유란시아의 증여 이후 시대

52:6.1 (597.2) 증여 아들은 평화의 영주이다. 그는 “땅에는
평화가 사람들 가운데 선한 뜻이 임할 것이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도착한다. 정상적인 세계들에서는 이것이
전 세계적 평화의 세대이다; 나라들은 더 이상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활력이 되는 영향들은
너희의 증여 아들, 그리스도 미가엘의 도래와 함께 하지
않았다. 유란시아는 정상적인 순서를 밟고 있지 않다.
너희의 세계는 행성 행진에서 벗어나 있다. 너희들의
주(主)는, 이 땅에 왔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의 출현이
유란시아에서 통상적인 평화의 주권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전쟁들과 전쟁들에 대한
소문들”이 있게 될 것임을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배척하여
일어날 것을 명백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또 어떤
경우에 그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52:6.2 (597.3) 심지어는 정상적인 진화의 세계들에서도 사람의
범세계적 형제신분의 실현이 쉽게 실현되지 않는다.
유란시아처럼 혼동되고 무질서한 행성의 경우에 그러한
성취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며 훨씬 더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한다. 도움을 받지 않은 사회적 진화는

영적으로 고립된 구체에서 그러한 행복한 결과들을 거의 성취할 수 없다. 종교적 계시는 유란시아에서의 형제신분 실현에 필수적이다. 예수는 영적 형제신분의 즉각적인 성취에 이르는 길을 보여준 반면, 너희 세계에서의 사회적 형제신분의 실현은 다음과 같은 개인적 변환들과 행성 조절의 성취에 많이 의존한다.

52:6.3 (597.4) 1. 사회적 형제우애 관계. 여행과 상업 그리고 경쟁적인 놀이를 통한 국제적 그리고 인종간의 사회적 접촉과 형제우애에서의 관계적-연합들의 증가. 공통 언어의 개발과 여러 언어 사용자들의 증가. 학생들, 선생님들, 사업가들, 그리고 종교적 철학자들의 인종 간 그리고 국가 간 교류.

52:6.4 (597.5) 2. 지적 상호-교류. 형제신분은 거주자들이 너무 원시적이어서 완화된지 않은 이기심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 국가적 그리고 인종적 문학의 교류가 발생되어야만 한다. 각각의 인종은 모든 인종들의 생각에 익숙해져야만 하며, 각각의 나라는 모든 나라들의 느낌을 알아야만 한다. 무지는 의심을 낳고, 의심은 동정심과 사랑의 기본적 태도와 양립될 수 없다.

52:6.5 (597.6)

3. 윤리적 각성. 오직 윤리적 의식만이 인간적 편협의 부도덕과 동족상잔의 싸움에서의 죄 가득함을 폭로할 수 있다. 오직 도덕적 의식만이 국가적 질투와 인종적 시기심에서의 악을 폐기시킬 수 있다. 오직 도덕적 존재들만이 황금률을 살리는 데 필수인 바로 그 영적 통찰력을 언제까지나 추구할 것이다.

52:6.6 (598.1)

4. 정치적 지혜. 감정적 성숙은 자아-통제에 필수적이다. 오직 감정적 성숙만이 전쟁의 야만스러운 중재 대신에 문명화된 판결의 국제적 기법으로 대치시키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 현명한 정치가들이 그들의 국가적 또는 인종적 집단들의 흥미를 증진시키기 위해 애쓰면서도, 인간성의 번영을 위하여 언젠가 일할 것이다. 이기적인 정치적 총명성은 궁극에는 자멸이다.—행성의 집단 생존을 보장하는 그 모든 항구성을 지닌 본질특성들을 파괴한다.

52:6.7 (598.2)

5. 영적 통찰력. 사람의 형제신분은, 결국,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을 깨닫는 것에 입각한다. 유란시아에서 사람의 형제신분을 실현하는 가장 빠른 길은 지금-현재 인간성의 영적 변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사회적 진화의 자연적인 추세를 촉진시키는 유일한 기법은 위로부터의 영적 압력을 적용하여 다른 모든 필사자를 납득하고 사랑하도록 모든 각각의 필사자 혼능력을 증진시키면서 도덕적 통찰력을 증강시키는 것이다. 상호 납득과 형제우애에서의 사랑은 문명화를 이루는 초월 처방이요, 사람의 형제신분의 범세계적인 실현에서 힘찬 요소가 된다.

52:6.8 (598.3) 만약에 너희가 퇴보되고 혼동된 너희 세계로부터 현재 증여 아들 이후 시대에 있는 어떤 정상적 행성으로 옮겨질 수만 있다면, 너희는 너희 전승들이 말하는 천국으로 너희가 옮겨진 것처럼 생각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민이 사는 필사자 구체의 정상적인 진화적 활동들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거의 믿지 못할 것이다. 이 세계들은 그들의 영역의 영적 순환회로들 안에 있으며, 그들은 우주 방송과 초우주의 반영성 봉사의 모든 편의를 누린다.

제 7 장. 교사 아들 이후의 사람

52:7.1 (598.4) 평균적인 진화 세계에 도착하는 다음 계층의 아들들은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신성한 아들들이다. 우리는 너희의 예수가 돌아오기로 한 약속으로 인하여 유란시아가 그 자매 구체들과 보조를 맞추는 데서 벗어나 있음을 또 다시 발견한다. 그는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이지만, 그의 두 번째 도래가 치안법관 아들 또는 교사 아들들이 유란시아에 출현하는 것보다 먼저 있을지 아니면 나중에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52:7.2 (598.5) 교사 아들들은 영성화 되는 세계들로 집단을 이루어 도래한다. 한 명의 행성 교사 아들이 70명의 1차 아들들과 12명의 2차 아들들 그리고 데이날들 중에서 3명의 가장 높고 가장 체험이 많은 최극 계층의 원조와 도움을 받는다. 이 무리단은 진화적 시대로부터 빛과 생명의 시대로 변환되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행성 시간으로 적어도 1,000년 그리고 종종 상당히 더 긴 어떤 기간—세계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이 임무는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 공헌해 온 신성한 개인성들 전체의 이전(以前)의 수고들에 대한 삼위일체 기부금이다.

52:7.3 (598.6) 진리에 대한 계시는 이제 중앙우주와 파라다이스까지 확장된다. 종족들은 상당히 영적인 상태가 된다. 하나의 위대한 민족이 진화되고 위대한

시대가 다가온다. 행성의 교육과 경제 그리고 행정-관리적 체계들이 급진적(急進的) 변화들을 겪는다. 새로운 가치들과 관계들이 수립된다. 하늘의 왕국이 이 세상에 나타나며, 하느님의 영광이 세계에 널리 퍼진다.

52:7.4 (598.7) 이것은 많은 필사자들이 살아 있는 존재들 가운데로부터 변환되는 세대이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의 시대가 진보됨에 따라, 시간의 필사자들의 영적인 헌신이 점점 더 보편적으로 된다. 조절자들이 육신 속에서의 생애 동안 그들의 주체들과 점점 더 많이 결합됨에 따라 자연적 죽음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행성은 결국에는 필사자 상승의 1차 변형 계층에 속하도록 분류된다.

52:7.5 (599.1) 이 시기 동안의 삶은 즐겁고 유익하다. 긴 진화적 투쟁의 퇴보와 반사회적 최종 산물들은 실질적으로 제거되었다. 수명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500년에 이르게 되며, 인종이 증가하는 번식 비율이 이성적으로 통제된다. 전혀 새로운 계층의 사회가 도래하였다. 필사자 사이에는 여전히 엄청난 차이들이 있지만, 사회의 상태는 사회적 형제신분과 영적 평등의 이상에 더욱 가깝게 접근한다.

대의정치는 사라지고, 세계는 각 개별존재의 자아-통제의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 정부의 기능은 사회적 관리-행정과 경제적 조화-협동의 공동 임무들에게 주로 집중된다. 황금기가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다; 길고도 격렬한 행성 진화 투쟁의 현세적 목표가 눈에 보이고 있다. 시대들에 대한 보상이 곧 깨달아 실현될 것이다; 하느님들의 지혜가 곧 현시될 것이다.

52:7.6 (599.2) 이 시대 동안 세계의 물리적 관리-행정은 각각의 어른 개별존재에게 매일 한 시간씩을 요구 한다; 그것은 유란시아 시간과 동일하다. 행성은 우주 관련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의 일간 신문들 중 가장 최근 판에서 너희가 지금 현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예민한 관심으로 최근의 방송들을 살펴본다. 이 종족들은 너희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천여 개의 일에 관심을 쏟고 있다.

52:7.7 (599.3) 최극존재에 대한 행성 충성심이 점점 더 자라간다. 세대가 거듭됨에 따라, 종족은 공의(公義)와 살아있는 자비를 실천하는 그들과 함께 줄을 서기 위해 점점 더 발을 들여놓을 것이다. 세계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하느님의

아들들의 기쁨에 넘친 봉사에 도달하고 있다. 육신적인 어려움들과 물질적인 문제들은 거의 해결되었다; 행성은 크게 진보된 삶과 더욱 안정된 실존을 위해 성숙되고 있다.

52:7.8 (599.4) 그들의 세대에 두루 때때로 교사 아들들이 이 평화로운 세계들에게로 계속 도래한다. 그들은 진화적 계획이 행성에 대해 고려하였던 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세계를 떠나지 않는다. 심판을 하는 한 치안법관 아들이 그들의 계속되는 임무들 가운데에서 교사 아들들과 함께 오는 반면, 그러한 다른 아들은 그들이 떠나갈 때 활동하고, 이 사법적 결정들은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 체제가 계속되는 데에 두루 시대에 따라 계속된다.

52:7.9 (599.5)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의 되풀이되는 각각의 임무는 지혜와 영성(靈性) 그리고 조화우주 계몽의 계속 상승하는 높이들에게로 그러한 숭고한 세계를 승진시킨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구체의 고귀한 원주민들은 여전히 유한한 필사자이다. 완전한 것이 아무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세계에 있어서

그리고 그곳의 인간 거주자들의 삶에 있어서 거의 완전하게 가까운 본질특성이 진화하고 있다.

52:7.10 (599.6)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동일한 세계로 여러 번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곧, 그들의 임무들 중 하나가 끝나는 것과 관련하여, 행성영주가 행성주권자의 자리로 승진되며, 그리고 그러한 세계가 빛과 생명의 시대로 들어감을 선포하기 위해 체계 주권자가 나타난다.

52:7.11 (599.7)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 밖의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영주를 위해 단장한 공주처럼 준비되어 있었다."고 기록한 것은 교사 아들들의 마지막 임무가 끝나는 때였다(적어도 그것은 정상적인 세계의 연대기가 될 것이다).

52:7.12 (600.1) 옛 선지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내가 만들겠고 내 앞에 남아 있게 되는 것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들도 생존을 받게 될 것이다; 새로운 달로부터 다음 달로 그리고 한 안식일로부터 다음 안식일로 모든 육체들이 내 앞에 경배를 드리러 나올 때가 이를 것이다'라고 하셨다."고 쓸 때 바라본 이것은, 개선된 지구, 진보된 행성 단계와 같은 것이다.

52:7.13 (600.2) “선택된 세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고귀한 민족; 너희는 너희를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어 이 신기한 빛 가운데로 불러낸 그 분에게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그러한 시대의 필사자들이다.

52:7.14 (600.3) 개별 행성의 특별한 자연적 역사가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영역이 전적으로 충성하였거나, 악으로 물들었거나, 또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나에 따라 차이 없이—그 앞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하느님의 은혜와 천사들의 사명활동이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의 출현 시에 곧 안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최종적 임무 이후에 그들이 떠나게 되면 빛과 생명의 이 장엄한 시대가 시작된다.

52:7.15 (600.4) 사타니아의 모든 세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한 대로, 정의(正義)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분에 의해 평화롭게 발견될 수 있도록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라”고 쓴 어떤 사람의 희망에 참여할 수 있다.

52:7.16 (600.5) 교사 아들 무리단이 그들의 첫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어떤 체제가 끝날 무렵에 떠나가면 빛과 생명의 시대—시간으로부터 영원의 문턱으로 전환되는 입구—가 밝아온다. 이 빛과 생명의 시대의 행성 실현은, 하늘을 생존되는 필사자의 즉각적인 운명과 최종 거주지로 묘사하는 종교적 믿음에 포용된 것 이상으로 더욱 멀리보는 그 어떤 미래 삶의 개념도 품을 수 없었던,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최고로 품을 수 있는 기대를 훨씬 뛰어 넘는다.

52:7.17 (600.6) [가브리엘의 참모진에 일시적으로 배정된 막강한 메신저에 의해 후원되었음]

제 53 편 루시퍼 반란

53:0.1 (601.1) 루시퍼는 네바돈의 눈부신 1차 라노난텍 아들이었다. 그는 이미 여러 체계들에서 봉사를 체험한 바 있었고, 자기 집단 중에서 높은 지위의 조연자였으며, 지혜와 총명성 그리고 능률성에서 뛰어난 존재였다. 루시퍼는 자기 계층 중에서 37번이었으며, 멜기세덱들에 의해 임명되었을 때 그와 같은 종류의 70만 명 이상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총명한 100명 중의 하나로 지정되었다.

그러한 훌륭한 출발로부터, 악과 잘못을 두루 거쳐, 그는 죄를 포용하였고 그리고 지금은 자아의 충동에 굴복한 그리고 겉치레만 그럴듯한 개인적 해방의 궤변—우주 충성의 거부와 형제우애에서의 의무에 대한 무시, 조화우주 관계들에 대한 무지—에 행복한 네바돈의 세 체계 주권자들 중 하나로 매겨지고 있다.

53:0.2 (601.2) 그리스도 미가엘의 권역인 네바돈 우주 안에는,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로 구성된 1만 개의 체계들이 있다. 라노난덱 아들들의 전체 역사 속에서, 이들 만여 개의 체계들과 우주 본부들 전역에 걸친 그들의 전체 활동 중에서, 지금까지 오직 세 명의 체계 주권자들만이 창조자 아들의 정부를 경멸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제 1 장. 반란의 주동자들

53:1.1 (601.3) 루시퍼는 상승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지역우주에서 창조된 아들이고, 그에 관하여 이런 말이 있다: “너는 네가 창조된 이후로 네 안에서 불의가 발견될 때까지 네 모든 행동에서 완전하였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에덴시아의 지고자들과 조언을 가진 바 있었다. 그리고 루시퍼는 예루셈의 행정-관리적 동산인 “하느님의

거룩한 산 위에” 군림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가 607개의 거주 세계들로 구성된 한 거대한 체계의 우두머리 집행자기 때문이었다.

53:1.2 (601.4) 루시퍼는 훌륭한 존재, 찬란한 개인성이었다; 우주 권한의 직접적 계통 안에서 별자리들의 지고자 아버지들 다음에 서 있었다. 루시퍼의 법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유란시아에 미가엘이 증여되기 이전에는 종속 지능체들이 그에게 경시와 경멸을 보이기를 억제하였다. 모세가 부활하였을 때, 심지어는 미가엘의 천사장도 “그에게 대항하여 비난하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다만 ‘재판관이 너를 꾸짖는다.’고 간단하게 말하였다.” 그러한 문제들에 있어서의 심판은 초우주의 통치자들인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게 속한다.

53:1.3 (601.5) 루시퍼는 지금 몰락되고 폐워된 사타니아의 주권자이다. 자아-응시는 심지어 천상의 세계의 고양된 개인성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비참하다. 루시퍼에 대해 이런 말이 있었다: “너의 아름다움 때문에 네 가슴이 높아졌고; 너의 총명함 때문에 네 지혜를 네가 타락시켰다.” 너희 옛 선지자는 그의 비참한 신분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였다: “오 루시퍼, 아침의 아들이여, 너는 어찌하여 하늘로부터 떨어졌는가! 무모하게 세계들을 혼동시킨 네가 어떻게 하여 쫓겨났는가!”

53:1.4 (602.1) 루시퍼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너희 행성에서 변호하도록 그의 첫 번째 부관인 사탄을 배정한 사실 때문에 유란시아에서는 그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사탄은 라노난텍들과 같은 1차 집단의 일원이었지만 체계 주권자로 활동한 적이 전혀 없었다; 그는 루시퍼 반란에 충분히 가담하였다. “마귀”는 유란시아의 폐위된 행성영주 그리고 라노난텍들의 2차 계층의 한 아들인 칼리가스티아에 불과하다. 미가엘이 육신을 입고 유란시아에 있었을 때, 루시퍼와 사탄 그리고 칼리가스티아는 그의 증여 임무가 실패하도록 영향을 주기 위해 연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확실하게 실패하였다.

53:1.5 (602.2) 아바돈은 칼리가스티아의 참모들의 우두머리이었다. 그는 자기 주인을 따라 반란에 가담하였고 그 후로 계속 유란시아 반란들의 우두머리 집행자로 활동하였다. 바알세블은 반역한 칼리가스티아의

무리와 스스로 결연하였던 불충한 중도 창조체들의 영도자였다.

53:1.6 (602.3) 용(龍)이 결국에는 이들 악한 인물들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미가엘이 승리하자, “가브리엘이 구원자별로부터 내려와 용(반란의 모든 영도자들)을 한 시대 동안 결박하였다.” 예루셈 세라핌천사 반란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최초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 거주지를 떠난 천사들을 그가 큰 날의 심판의 때까지 흑암의 든든한 쇠사슬로 묶어 놓았다.”

제 2 장. 반란의 원인들

53:2.1 (602.4) 루시퍼와 그의 첫 번째 보좌관인 사탄은, 그들이 그들의 가슴속에서 우주 아버지 그리고 그때 그의 대관 아들, 미가엘에 대항하기 시작하였을 당시, 50만년 이상 예루셈을 통치하고 있었다.

53:2.2 (602.5) 사타니아 체계에는 반란을 조장하거나 불리 일으킬만한 독특하거나 특별한 조건이 전혀 없었다. 우리가 믿기로는 그 생각은 루시퍼의 마음에서 기원되고 형성되었으며, 그가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그러한 반란을 유발시켰을 것이다. 루시퍼가 자기 계획을 처음으로

사탄에게 알렸지만, 그의 유능하고도 총명한 연관-동료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데에는 여러 달이 소요되었다. 그렇지만, 반란 논리로 일단 전환되자, 그는 “자아-주장과 해방”에 대한 과감하고도 열렬한 주창자가 되었다.

53:2.3 (602.6) 아무도 루시퍼에게 반란을 제안한 적이 없었다. 미가엘의 뜻에 대해, 그리고 미가엘 안에서 대표되는 바에 따른 우주 아버지의 계획들에 대해, 반대하는 자아-주장의 생각은 그 자신의 마음 안에 그 기원을 가지고 있었다. 창조자 아들과의 그의 관계는 친밀하였고 항상 충성스러웠다. 그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고양시키기 전까지는 루시퍼는 우주 관리-행정에 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적이 전혀 없었다. 그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표준시간으로 100년 이상 동안, 루시퍼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평화롭지 못함을 구원자별에 있는 연합으로 늘 계신이가 유버사에 반영해오고 있었다. 이 정보는 또한 창조자 아들 그리고 놀라시아덱의 별자리 아버지에게도 통보되었다.

53:2.4 (602.7) 이 기간에 두루 루시퍼는 우주 관리-행정에 대한 전체 계획을 점점 더 비판하게 되었지만, 최극

통치자들에게는 항상 전심으로의 충성심을 고백하였다. 노골적인 그의 첫 번째 불충성은 루시퍼 해방 선언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기 바로 며칠 전에 가브리엘이 예루셈에 방문하였을 때 현시되었다. 가브리엘은 임박한 폭동에 대한 확신으로 너무나 심각하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공개적인 반란의 경우에 채택될 방법들에 대하여 별자리 아버지들과 의논하기 위하여 직접 에덴시아로 갔다.

53:2.5 (603.1) 루시퍼의 반란에서 최종적으로 극에 달하였던 정확한 원인이나 원인들을 지적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다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었던 지간에, 그것들은 루시퍼의 마음속에서 이미 기원되었다. 자아-기만의 지점까지 스스로를 조장시킨 자아의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며, 그리하여 루시퍼는 반란에 대한 자신의 깊은 사색이 우주에게는 그렇지 않더라도 체계에는 실재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한동안 실제로 자신을 설득하였다. 자신의 계획으로 환멸감을 개발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를 중지시키기에는 그의 기원적이고 이간질하는 자부심이 너무 멀리 가버렸음이 틀림없다. 이러한 체험의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그는 진실하지 못하게 되었고 악이 고의적이고도 의지적인 죄 속으로 개입되었다. 이 일이 있어났다는 것은 이 총명한 집행자의 그 이후 처리행위로서 증명된다. 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오랫동안 받았지만, 그의 종속들 중 일부만이 제안된 자비를 받아들였다. 별자리 아버지들의 요청에 따라, 에덴시아의 충심으로 늘 계신이가 이 악명 높은 반란자들을 구하기 위한 미가엘의 계획을 직접 제시하였지만, 창조자 아들의 자비는 항상 거부되었고 점점 증가되는 경멸과 모욕과 함께 거절되었다.

제 3 장. 루시퍼 선언문

53:3.1 (603.2) 루시퍼와 사탄의 가슴 속에 있는 문제의 초기 기원이 무엇이었던지, 최종적인 폭동은 루시퍼 해방 선언으로 나타났다. 반란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53:3.2 (603.3) 1. 우주 아버지의 실체. 루시퍼는 우주 아버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물리적 중력과 공간-에너지가 우주에 선천적으로 있었음을, 그리고 아버지는 파라다이스 아들들에 의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우주들에 대한 통치를 유지할 수 있게 하려고 창안된 신화(神話)임을 설명하였다. 그는 개인성이 우주 아버지의 선물임을 부인하였다. 그는 최종자조차도 결코 파라다이스에서 식별될 수 있는 아버지의 실재적인 개인성에 대한 매우-분명한 관념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창조에 대한 사기(詐欺)를 치려고 파라다이스 아들과 함께 공모하고 있다고까지 넌지시 비쳤다. 그는 존경을 무지라고 팔아 버렸다. 고발은 모두를 휩쓸었고, 무시무시하였으며 모독적이었다. 그 당시 예루셈에 있는 상승하는 시민들에게, 반란의 모든 제안들에 대항하여, 견고하게 서있고 확고하게 남도록 영향을 준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이 최종자에 대한 은밀한 공격이었다.

53:3.3 (603.4) 2. 창조자 아들-미가엘의 우주 정부. 루시퍼는 지역체계가 자율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네바돈의 주권이 가설에 지나지 않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 보이지도 않는 아버지에게 모든 개인성들이 충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미가엘, 창조자 아들의 권리에 대항하였다. 그는 경배에 대한 전체 계획이 파라다이스

아들들을 웅대하게 하려는 교묘한 술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가엘을 자신의 창조자-아버지로 기꺼이 인정하였지만 자신의 하느님 그리고 합법적 통치자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53:3.4 (603.5) 그는 가장 혹독하게, 지역체계들과 우주들의 관련사들을 휘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옛적으로 늘 계신이—“외부 지배자”—의 권한을 공격하였다. 그는 이 통치자들을 폭군과 침입자로 비난하였다. 그는 만일 사람들과 천사들이 스스로의 주장을 내세우고 담대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만한 용기를 갖기만 한다면 이 통치자들 중 누구도 완벽한 지방 자치의 운영에 조금도 개입할 수 없음을 믿으라고 자신의 추종자들을 타일렀다.

53:3.5 (603.6) 그는 토착 존재들이 그들의 독립을 주장만 하면 지역체계들 안에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집행자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금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불멸성이 체계 개인성들 안에 선천적으로 있음을, 부활이 자연적이고 자동적임을 주장하였고, 그리고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집행자들의 독단적이고 옳지 않은 활동들만 아니라면 모든 존재들이 영원히 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3. 상승하는 필사자 훈련의 우주 계획에 대한 공격.

루시퍼는 우주 관리-행정의 기본 방침들에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상승하는 필사자들에게 그렇게 온통 훈련하는 기획에 소모하고 있으며, 그는 이들 방침들이 비윤리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확언하였다. 그는 어떤 미지의 운명을 위해 공간의 필사자들을 준비시키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계획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예루셈에 있는 최종자 무리단의 현존은, 이들 필사자들이 순전히 날조된 어떤 운명을 준비하는 일을 위하여 오랜 세월을 허비해 왔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최종자가 그들이 기원된 것과 비슷한 그런 초라한 구체에 돌아와 있는 것에서 나타난 것처럼 영화롭지도 않은 운명에 직면했었다고 비웃음과 함께 지적하였다. 그는 그들이 과도한 단련과 장기간의 훈련에 의해 이미 방탕이 지나쳤음을, 그리고 상승하는 필사자를 위한 신화와 같은 영원한 운명의 날조에 모든 창조체를 노예화 시키는 계획에 그들이 지금 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필사자 동료에 대해 실체 안에서, 배신자임을 내비쳤다. 그는 상승자들이 개별적 자아-결정권의 해방을 누려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에 의해 후원되고 무한한 영에 의해 도움을 받는
필사자 상승에 대한 전체 계획에 도전하고 그것을
규탄하였다.

53:3.7 (604.2) 그리고 루시퍼는 그러한 해방 선언과 함께, 자신의
어둠과 죽음의 대향연을 시작하였다.

제 4 장. 반란의 발발(勃發)

53:4.1 (604.3) 루시퍼 성명서는 유리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타니아의 연례 비밀회의에서 발표되었는데, 유란시아
시간으로 약 20만 년 전, 그 해 마지막 날에, 예루셈에 모인
무리 앞에서였다. 사탄은, 경배가 우주 힘—물리적, 지적,
그리고 영적—에 일치될 수 있어야만 하며, 한편
충성서약은 오직 현재의 실재적 통치자, “사람들과
천사들의 친구”이며 “해방의 하느님”인 루시퍼에게만
드릴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53:4.2 (604.4) 자아-주장은 루시퍼 반란의 슬로건이었다. 그의
주요 주장들 중 하나는, 만약 자치-정부가 멜기세덱들과
다른 집단들에 대해 선하고 올바르다면, 그것은 모든
계층의 지능체들에게도 동등하게 선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마음의 동등성”과 “지능체의 형제신분”을 옹호하는

일에 단호하고도 완고하였다. 그는 모든 정부가 지역
행성들에게로 제한되어야만 하고 그들의 자발적 연관이
지역체계들에게로 제한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다른 모든 감독권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행성영주들이
최극집행자들로서 세계들을 통치하게 될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였다. 그는 입법 활동들이 별자리 본부에서 그리고
사법적 관련사들의 수행이 우주 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난하였다. 그는 정부의 이 모든 기능들이 체계
본부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자기 자신의
입법기관을 세우려고 진행시켰고 사탄의 관할 아래에
자기 자신의 법정들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그는 변절한
세계들에 있는 영주들이 동일한 일을 하도록 지도하였다.

53:4.3 (604.5) 루시퍼의 전체 관리-행정적 내각이 하나로
뭉쳐졌고 “해방된 세계들과 체계들”의 새 우두머리의
관리-행정 각료들로서 공개적으로 선서되었다.

53:4.4 (605.1) 네바돈에서 그 전에 두 번의 반란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먼 별자리들에서 발생되었다. 루시퍼는 이
폭동들이 실패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왜냐하면 지능체들
대부분이 그들의 영도자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수의 통치”라는 것, “마음은 오류가 있을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우주 통치자들에 의해 허용된 그의 자유가, 사악한 그의 주장들 대부분을 승인하는 듯이 보였다. 그는 자기 상급자들을 모두 거역하였다; 그래도 그들은 그의 행위들을 주목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그는 아무런 장애나 방해 없이 자신의 유혹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자유가 손에 쥐어졌다.

53:4.5 (605.2) 루시퍼는 공의(公義)의 자비로운 연기(延期) 전체를, 반란을 중지시키기 위한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증거로 간주하였다. 그는 미가엘과 임마누엘 그리고 옛적으로 늘 계신이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오만하게 도전하였으며 그리고는 우주와 초우주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명확한 증거로서 아무 행동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사실로서 지적하였다.

53:4.6 (605.3) 가브리엘은 불충한 이 모든 과정들 전반을 직접 지켜보았으며 때가 되면 미가엘을 대변할 것과 모든 존재들이 그들의 선택에 있어서 자유롭게 되고 방해 받지 않게 될 것임을; “아버지를 위한 정부가 자발적이고 성의

있는 그리고 궤변이 없는 충성과 헌신만을 요구하였음”을 공표하였을 뿐이다.

53:4.7 (605.4) 가브리엘이 탈퇴하는 권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반란을 선전하는 것을 좌절시키려고 어떤 노력을 하기 전에, 루시퍼는 자신의 반란 정부를 수립하고 전체적으로 조직하도록 충분히 허용되었다. 그러나 별자리 아버지들은 즉시 이 불충한 개인성들의 활동을 사타니아 체계로 제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이 기간은 사타니아 전체의 충성스러운 존재들에게 커다란 시련과 시험의 기간이었다. 모든 것이 수 년 동안 혼돈의 상태에 있었고, 맨션세계들에 큰 혼란이 있었다.

제 5 장. 대립의 본성

53:5.1 (605.5) 사타니아 반란이 발발하자, 미가엘은 자신의 파라다이스 형제인 임마누엘과 의논을 가졌다. 이 중대한 회의가 있는 다음에, 미가엘은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격변, 불간섭의 태도에 대해 그가 처리했던 것들의 특징이었던 동일한 정책을 적용할 것임을 공고하였다.

53:5.2 (605.6) 이 반란과 그 이전의 두 반란이 있었던 때에 네바돈 우주 안에는 절대적이고 개인적인 주권자 권한이 없었다.

미가엘은 신성한 권한에 의해, 우주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통치하였지만, 아직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권한으로 다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증여 생애를 완성하지 못했으며;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세”를 아직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53:5.3 (605.7) 반란이 일어난 때로부터 네바돈의 주권 통치자로서 자신이 즉위되는 때까지, 미가엘은 루시퍼의 반란 무리에 결코 간섭하지 않았다; 그들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거의 20만년 동안 자유로운 길을 날뛰도록 허용되었다. 그리스도 미가엘은 이제 그러한 불충성의 폭동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엄청난 힘과 권한을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만일 또 다른 그러한 격변이 발생했을 때, 이 주권 권한이 그를 다르게 행동하도록 이끌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53:5.4 (605.8) 루시퍼 반란의 실재 전쟁으로부터 초연해 있기로 미가엘이 선택하였기 때문에, 가브리엘은 자신의 직접적인 참모진을 에덴시아에 소집시켜 놓았으며, 지고자들의 의논하고 나서, 사타니아의 충성스러운

무리들을 지휘하기로 작정하였다. 가브리엘이 예루셈으로 나아가 충성스러운 개인성들로 이루어진 무리의 현존 앞에서, 그가 미가엘의 깃발, 흰색 바탕에 세 개의 하늘색 동심원(同心圓)을 그린, 모든 창조의 삼위일체 정부의 물질적 상징(象徵)을 내걸면서 아버지—루시퍼와 사탄이 의심하였던 그 동일한 우주 아버지—에게 바쳐진 구체위에 그 자신을 세우고 있을 동안, 미가엘은 구원자별에 남아 있었다.

53:5.5 (606.1) 루시퍼의 상징은 한 개의 빨간색 원이 있는 흰색 깃발이었는데, 중앙에는 검정색으로 가득 찬 원이 나타나 있다.

53:5.6 (606.2)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미가엘의 명령자와 그의 천사들이 용(루시퍼, 사탄, 그리고 변절한 영주들)과 대항하여 싸웠으며; 용과 그의 반란하는 천사들이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였다.” 이 “하늘에서의 전쟁”은 유란시아에서 혼동을 야기하기도 하는 그러한 물리적 전쟁은 아니었다. 분투의 초기에는 루시퍼는 행성 원형극장에서 줄곧 열변을 토하였다. 가브리엘은 바로 가까이 자리 잡은 그의 본부로부터 반란의 궤변에 대한

끊임없는 폭로를 수행하였다.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이들 토론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태도를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의심에 사로잡혔던 다양한 개인성들이 구체에 있었다.

53:5.7 (606.3) 그러나 하늘에서의 전쟁은 매우 끔찍하였고 매우 실제적이었다. 미성숙한 세계들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전쟁과 같은 그러한 특징의 야만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 갈등은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 물질적 전투에서는 물질적 생명이 위태롭게 되지만, 하늘에서의 전쟁은 영원한 생명을 조건으로 한 싸움이었다.

제 6 장. 충성스러운 세라핌천사 사령관

53:6.1 (606.4) 적개심의 발단과 새로운 체계 통치자 그리고 그의 참모진의 도착 사이에서 잠시 동안 수많은 개인성들에 의해 수행된 고귀하고도 영감을 주는 수많은 헌신과 충성의 행위들이 있었다. 그러나 헌신에 있어서 이 모든 대담한 업적들 중에서 가장 장렬한 것은 사타니아 본부의 세라핌천사들의 두 번째 지휘관인 마노티아의 용맹스러운 행위였다.

53:6.2 (606.5)

예루셈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세라핌천사 무리의 대장이 루시퍼 주장에 가담하였다. 이것은 체계 행정-관리자 세라핌천사인 네 번째 계층 중에서 어떻게 그토록 많은 숫자가 빗나가게 되었는지를 의심할 여지없이 설명해 준다. 세라핌천사 영도자는 루시퍼의 총명한 개인성에 의해 영적으로 눈이 멀어지게 되었다; 그의 매력 있는 처신들이 천상의 존재들의 비교적 하위 계층들을 매혹시켰다. 그들은 그러한 눈부신 개인성이 그릇된 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뿐이다.

53:6.3 (606.6)

루시퍼 반란의 개시와 연관된 체험들을 설명하면서, 마노티아가 이렇게 말한 지 얼마 안 된다: “그러나 나의 가장 신나는 순간은 루시퍼 반란과 연결된 가슴 떨리는 모험이었다, 그때 세라핌천사 사령관의 두 번째로서, 나는 미가엘에 대한 계획적으로 투사된 모욕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강력한 반란자들은 그들이 정리해 왔었던 교섭 세력들을 수단으로, 나의 파멸을 모색했다. 예루셈에서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났지만, 충성스러운 세라핌천사는 단 하나도 해를 입지 않았다.

53:6.4 (606.7)

“나의 직속 상급자가 불이행함에 따라 나에게는 체계의 혼동된 세라핌천사 관련사들에 대한 명목상의 지도관으로서 예루셈의 천사 무리를 명령하는 일이 발생되게 되었다. 나는 멜기세덱들에 의해 도덕적으로 고무되었고, 물질아들들 대부분에 의해 훌륭하게 도움을 받았으며 나 자신의 계층에 해당하는 수많은 집단에 의해 버림을 받았지만, 예루셈에 있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에 의해 크게 후원을 받았다.

53:6.5

(606.8)

“루시퍼의 탈퇴로 인하여 별자리 순환회로들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보무리단의 충성에 의존하였고, 그들은 가까이 있는 란투리아 체계에서 에덴시아에게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계층을 이룬 왕국, 충성을 지닌 지성, 그리고 진리의 영이, 반란과 자아-주장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개인적 해방에 대하여 선천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루시퍼를 대신할 덕망 있는 후계자인 새로운 체계 주권자가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즉시 나는 유란시아의 멜기세덱 접수자관계 무리단에 배정되었고, 배반한 칼리가스티아의 세계에 있는 충성하는 세라핌천사 계층에 대한 관할권을

말았다. 칼리가스티아, 그는 자기의 구체가, '자유롭게된 세계이며 해방된 개인성'으로 새롭게 투사된 체계의 일원이라고 선포했었던 자였다, 이것은 루시퍼에 의해 발표된 악명 높은 해방 선언 안에 제안한 것으로, '잘못-다스려지고 그릇되게 관리-운영된 사타니아 세계들에서, 해방을-사랑하고, 자유롭게-사고하고, 그리고 앞을-내다보는 지능존재'를 불러 모은다며 발표한 것이었다.

53:6.6 (607.1) 이 천사는 아직도 유란시아에서 봉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세라핌천사 연관-동료 지휘관으로 활동한다.

제 7 장. 반란의 역사

53:7.1 (607.2) 루시퍼 반란은 체계에 널리 퍼졌다. 탈퇴한 37명의 행성영주들이 그들 세계 관리-행정을 대체로 최고 반란자의 편으로 가게 하였다. 오직 파놉티아에서만 행성영주가 자기 민족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데 실패하였다. 이 세계의 경우, 사람들은 멜기세덱들의 안내에 따라, 미가엘을 지지하는 쪽으로 모여들었다. 필사자 영역의 한 젊은 여인인 엘라노라가 인간 종족들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으며, 투쟁으로 찢겨진 세계에서 어느 한 혼도 루시퍼 깃발 아래에 등록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후로 이들 충성스러운 파놉티아인 들은 일곱 번째 예루셈 변환 세계에서 보살피는 자들로서 봉사하였고 아버지의 구체와 그것을 둘러싼 일곱 개의 억류 세계들에서 건축자들로서 봉사하였다. 파놉티아인들은 이들 세계의 말 그대로 보호관리자일 뿐만 아니라, 어떤 미래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용도를 위해 이들 구체들을 꾸미도록 하는 미가엘의 개인적 지시들을 집행하기도 한다. 그들은 에덴시아로 가는 길에 머무르면서 이 일을 한다.

53:7.2 (607.3) 이 기간 전체 동안 칼리가스티아는 유란시아에서 루시퍼의 주장을 널리 알리고 있었다. 멜기세덱들은 변절한 행성영주를 적절하게 반대하였지만, 억제되지 않은 해방의 궤변과 자아-주장의 망상들은 젊고 개발되지 않은 세계의 원시 민족들을 속이기 위한 모든 기회를 누렸다.

53:7.3 (607.4) 모든 탈퇴 선전은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왜냐하면 방송 서비스와 다른 모든 행성 간 큰길들이 체계 순환회로 감독자들에 의해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폭동이 실재적으로 발발하자, 사타니아 전체 체계는 별자리에서 그리고 우주

순환회로들에서 모두 고립되었다. 이 시기 동안 모든 출입 메시지들은 세라핌천사 대리자들과 단독 메신저들에 의해 보내졌다. 몰락한 세계들에 이르는 순환회로들 역시 차단되었고, 그리하여 루시퍼는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확장시키는 일에 이 큰길을 활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순환회로들은 최고반란자들이 사타니아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53:7.4 (607.5) 이것은 라노난덱 반란이었다. 반란의 행성들에 머문 생명운반자들 중 일부분이 불충한 영주들의 반란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우주 아들관계의 비교적 높은 계층들은 루시퍼 이탈에 가담하지 않았다. 삼위일체화 아들들 중에서는 아무도 빛나가지 않았다. 멜기세덱들, 천사장들, 그리고 찬란한 저녁별들은 모두 미가엘에게 충성하였으며,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통치를 위하여 가브리엘과 함께 용맹스럽게 투쟁하였다.

53:7.5 (608.1) 파라다이스 기원 존재들은 불충성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단독 메신저들과 함께 그들은 영의 세계에서 본부를 차지하였으며 에덴시아의 중심으로 늘

계신이의 지도력 아래에 남아 있었다. 화해자들 중에서는 누구도 변절하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천상의 기록자들 중 한 명도 빛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모론시아 동행자들과 맨션세계 교사들 에서 큰 대가(代價)를 치렀다.

53:7.6 (608.2) 세라핌천사의 최극 계층에서는 한 명의 천사도 잃지 않았지만 그 다음 계층인 상급자들에서는 상당히 많은 집단이 기만당하고 함정에 빠졌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또는 감독 계층 중 일부 천사들이 속임을 당하였다. 그러나 격렬한 붕괴가 네 번째 집단, 행정-관리자 천사들에게 일어났는데, 세라핌천사들은 대개 체계 수도들의 임무에 배정되어 있다. 마노티아가 그들 중 거의 3분의 2를 구했지만, 3분의 1을 약간 넘는 숫자는 그들의 우두머리를 따라서 반란 대열에 합류하였다. 행정-관리자 천사들에게 배정된 예루셈 케루빔 전체 중에서 3분의 1이 그들의 불충한 세라핌천사들과 함께 유실되었다.

53:7.7 (608.3) 물질아들들에게 배정된 존재들인 행성 천사 조력자들 중에서 또한 3분의 1이 속임을 당하였고, 과도기 사명활동자들 중 거의 10퍼센트가 함정에 빠졌다. 요한은 거대한 붉은 용에 대해 썼을 때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았는데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고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 당겨서 그것들을 흑암 속에 던져 넣었다.”

53:7.8 (608.4) 가장 큰 손실은 천사 계급에서 발생하였지만, 지능체들 중 비교적 낮은 계층들 대부분이 불충성에 포함되었다. 사타니아에서 손실된 681,227명의 물질아들들 중에서 95퍼센트가 루시퍼 반란으로 말미암은 피해자들이다. 행성영주들이 루시퍼 주장에 가담한 개별 행성들에서 많은 숫자의 중도 창조체들이 손실되었다.

53:7.9 (608.5) 여러 면에서 볼 때, 이 반란은 네바돈에서 발생한 그러한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비참한 것이었다. 다른 두 가지 모두의 경우보다도 더 많은 개인성들이 이 폭동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루시퍼와 사탄의 밀사(密使)들이 최종자 문화 행성에 있는 유아-훈련 학교들을 남겨놓기는커녕 오히려 자비 안에서 진화 세계들로부터 구원된 이들 발달하고 있는 마음들을 타락시키려 했던 일이 그들에게 영속하는 불명예가 되었다.

53:7.10 (608.6)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공격을 받기 쉽지만, 비교적 낮은 영들보다 반란의 궤변들을 더 잘 견디어 낸다. 자신들의 조절자들과 최종적인 융합을 이루지 못한, 비교적 낮은 맨션세계들에 있는 그들 중 많은 숫자가 몰락한 반면, 예루셈에 있는 사타니아 상승 시민신분을 가진 어느 한 존재도 루시퍼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상승 계획의 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려준다.

53:7.11 (608.7)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날이 갈수록 네바돈 전체의 방송국들은 천상의 지능체로 이루어진 상상할 수 있는 각각의 계층의 근심에 싸인 시청자들에 의해 가득 메워졌는데, 그들은 사타니아 반란에 대한 속보들을 즉시 읽었고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계속 이야기하는 보고들이 있으면 기쁨을 향유하였으며, 필사자들은 멜기세덱의 지휘 하에, 탈퇴와 죄의 깃발 주변에 그토록 즉시적으로 모여든 교활한 악의 세력들 전체의 병합되고 집요한 노력들을 성공적으로 견디어 내었다.

53:7.12 (608.8) “하늘의 전쟁”이 시작된 때로부터 루시퍼의 후계자가 세워지기까지 체계 시간으로 2년 이상이 걸렸다. 그러나 마침내 새로운 주권자가 왔는데, 자신의 참모진과 함께 유리 바다에 도착하였다. 나는 가브리엘에 의해 에덴시아에서 동원된 예비자들에 속하고 있었으며, 놀라시아텍의 별자리 아버지에게 전한 라나휘지의 첫 번째 메시지를 잘 기억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예루셈 시민 중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상승하는 모든 필사자가 불같은 시험에서 살아남았고 혹독한 시험으로부터 모두가 승리자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별과 유버사 그리고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필사자 상승의 생존적 체험이 반란에 대항하는 가장 위대한 안전성이며 죄에 대항하는 가장 분명한 보호장치가 된다는 확신의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신실한 필사자들로 구성된 이 숭고한 예루셈 단체는 정확하게 187,432,811명이었다.

53:7.13 (609.1) 라나휘지의 도착과 함께 교활한 반란자들은 모든 지위에서 물러나고 다스리는 힘이 박탈당하였지만, 한편 그들은 예루셈 근처와 모론시아 구체들에게로 그리고 심지어는 거주민이 사는 각각의 세계들에게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그들은 사람들과 천사들의 마음들을 혼동시키고 오도하려는 매혹적이고도 기만적인 노력들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예루셈의 행정-관리적 고지(高地)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일을 고려할 때, “그들이 설 자리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53:7.14 (609.2) 루시퍼가 사타니아에 있는 모든 행정-관리적 권한들을 빼앗긴 반면, 이 사악한 반란을 억제하거나 쳐부술 수 있는 지역우주 권한 또는 법정¹이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 미가엘의 시대에는 주권적 통치자가 없었다. 체계 정부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별자리 아버지들을 승인하기는 하였지만, 루시퍼와 사탄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들에 대한 현재의 지위와 미래의 처분에 관하여 아직 미해결된 많은 상소들에 있어서 그 다음의 결정들을 전혀 하달한 바가 없었다.

53:7.15 (609.3) 그래서 이 최고반란자들은 불만과 자아-주장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교리를 더 퍼뜨리기 위하여 전체 체계를 배회하도록 허락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란시아 시간으로 거의 20만년 동안 그들은 다른 세계를 속일 수가

없었다. 37개 세계가 몰락한 후로 어떤 사타니아 세계도 파멸되지 않았으며, 반란의 시대 이후에 사람이 살게 된 더 젊은 세계들도 그러하였다.

제 8 장. 유란시아에서의 사람의 아들

53:8.1 (609.4) 루시퍼와 사탄은 유란시아에서의 미가엘의 증여 임무가 완수될 때까지 사타니아 체계를 자유롭게 배회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병합된 맹공이 사람의 아들에게 가해지던 시기에 함께 너희들 세계에 마지막으로 있었다.

53:8.2 (609.5) 그 전에, "하느님의 아들들"인 행성영주들이 주기적으로 모였을 때, "사탄도 왔는데" 그는 몰락한 행성영주들의 고립된 세계들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미가엘의 마지막 증여 이후로 예루셈에서 그러한 해방을 허용 받지 못하고 있다. 육신 속에 증여되었을 때 미가엘을 타락시키려고 그들이 노력한 이후로, 루시퍼와 사탄에 대한 모든 동정심이 사타니아 전체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립된 세계들 바깥에서, 사라졌다.

53:8.3 (609.6) 미가엘의 증여는 행성영주들이 배신한 행성들을 제외한 모든 사타니아에서 루시퍼 반란을 종료시켰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가 자신의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어느 날 자기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은 예수의 개인적 체험에서의 의의(意義)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때 사탄은 마지막 결정적인 투쟁을 위해 루시퍼와 함께 유란시아에 왔었다.

53:8.4 (609.7) 사람의 아들은 성공을 자신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는 너희 세계에서의 자신의 승리가 사타니아에서뿐만 아니라 죄가 들어왔던 다른 두 체계에서도, 오랜 세월에 걸친 그의 적들의 지위를 영구히 해결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루시퍼의 제안들에 대한 대답으로 너희 주(主)가, 차분하게 그리고 신성한 확신을 가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했을 때 필사자들을 위한 생존과 천사들을 위한 안전이 거기에 들어 있었다. 그것이, 원칙적으로, 루시퍼 반란의 실제적인 종말이었다. 반란자들에 대한 파멸을 바라는 가브리엘의 청원에 대하여 유버사 법정이 집행하는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판결은, 이미 이 사건의 청문을 듣는 첫

걸음을 밟았기 때문에, 시간의 충족을 갖추게되면 의심할 여지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53:8.5 (610.1) 칼리가스티아는 사람의 아들이 자신의 죽음에 임박할 때까지 그로부터 절차상 유란시아의 영주로 인정을 받았다. 예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은 이 세계에 대한 심판의 때이다; 이제는 이 세계의 영주가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필생의 사업이 완결될 날이 더욱 가까워지자, “이 세계의 영주가 심판을 받는다.”고 전하였다. 그리고 한 때 “유란시아의 하느님”이었던 존재가 바로 이 폐위되고 불신임 당한 영주이다.

53:8.6 (610.2) 유란시아를 떠나기 전 미가엘의 마지막 행동은 칼리가스티아와 달리가스티아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의 친절한 제안을 거절하였다. 너희의 배신자 행성영주인 칼리가스티아는, 유란시아에서 여전히 그의 사악한 속셈들을 추진하려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절대로 없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의 사악한 현존으로 저주를 받게 되기를 실제로 원하지 않는 한 그들을

유혹하거나 타락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혼을 가까이 끌어당길 수도 없다.

53:8.7 (610.3) 미가엘의 증여 이전에 이 흑암의 통치자들은 유란시아에서 그들의 권한을 유지하려고 획책하였으며, 보다 아래의 그리고 종속된 천상의 개인성들에게 끈질기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불충한 이 칼리가스티아와 그에 못지않을 정도로 비열한 연관-동료 달리가스티아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져 온 미가엘의 영, 보호하는 진리의 영과 파라다이스 생각 조절자들의 신성한 장엄 앞에 굴복하고 있다.

53:8.8 (610.4) 그러나 그렇더라도, 어떤 몰락한 영도 하느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침투하거나 혼을 괴롭히는 힘을 갖지 못하였다. 사탄뿐만 아니라 칼리가스티아도 하느님의 신앙적 아들들에게 손을 대거나 접근할 수 없었다; 신앙은 죄와 사악한 불의에 대항하는 효력적인 무기이다.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며, 사악하고 불의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이다.

53:8.9 (610.5) 일반적으로, 연약하고 방종 하는 필사자들이 악마들과 귀신들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상상할 때는, 그들은 단지 그들 자신의 선천적인 저속한 성향에 지배받고, 그들 자신의 자연본성적 성향에 이끌리는 것뿐이다. 악마는 그에게 속하지도 않은 악에 대하여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고 있다. 칼리가스티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상당히 무력화되었다.

제 9 장. 반란의 현재 상태

53:9.1 (610.6) 루시퍼 반란의 초기 시대에, 구원이 미가엘에 의해 모든 반란자들에게 제공되었다. 참된 회개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완벽한 우주 주권을 그가 달성함에 따라, 어떤 우주 봉사의 형태로의 복귀와 용서를 제안하였다. 영도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그의 자비로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수백 명의 물질아들들과 딸들을 포함하여, 천상의 존재들 중 비교적 낮은 계층들과 천사들 중 수천 명이 파놉티안들에 의해 선포된 자비를 받아들이었고 1,900년 전에 예수의 부활 시에 복권되었다. 이 존재들은 예루셈의 아버지의 세계로 지금까지 옮겨진 상태에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가브리엘 대(對) 루시퍼의 문제에 있어서 유버사 법정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까지 법적으로 유예된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소멸의 평결이 내려질 때, 회개하고 구원된 이 개인성들이 소멸의 판결로부터 제외될 것을 의심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집행이 유예된 이 혼들은 지금 아버지의 세계를 돌보는 일에 파놉티안들과 함께 수고하고 있다.

53:9.2 (611.1) 최고사기꾼은 미가엘이 증여를 완수하고 그리고 네바돈의 분별불가 통치자로서 최종적이고도 확고부동하게 자신을 확립시키려는 목적에서 되돌아서게 하려고 그가 획책하였던 그 날 이후로 유란시아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미가엘이 네바돈 우주의 안정된 지배자가 됨에 따라, 루시퍼는 유버사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대리자들에 의해 구금되었으며 그 후로 지금까지 예루셈에 있는 아버지의 변환 구체들 중 1번 위성에서 죄수가 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세계들과 체계들의 통치자들은 사타니아의 불충한 주권자의 종말을 여기에서 목격한다. 바울은 미가엘의 증여에 뒤따른 이 반란의 영도자들의 지위를 알았는데, 왜냐하면 칼리가스티아의 우두머리들에 대해 "하늘의 거처에 있는 악한 짓을 행한 영의 무리"로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53:9.3 (611.2) 미가엘은, 네바돈에 대한 최극 주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가브리엘 대 루시퍼의 사건에 있어서 초우주 법정들이 통치할 때까지 루시퍼 반란에 관련된 모든 개인성들을 억류시킬 수 있는 권한을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게 요청하였는데, 너희가 계산하는 시간으로 거의 20만 년 전에 유버사 대법정에 기록되었다. 체계 수도 집단과 관련하여,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미가엘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사탄은 다른 하느님의 아들이 그러한 배신한 세계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될 때까지, 또는 유버사의 법정이 가브리엘 대 루시퍼의 사건을 판결하게 되는 그때까지, 몰락한 세계들에 있는 변절한 영주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53:9.4 (611.3) 너희에게는 거주지 안에 고정적으로 있는 아들—행성영주 혹은 물질아들—이 없기 때문에, 사탄은 유란시아에 올 수 있었다. 그 이후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유란시아의 행성영주 대관으로 선포되어 왔으며, 그리고 가브리엘 대 루시퍼의 사건의 시작은 고립된 모든 세계들에서 임시 행성 체제가 개시되었음을 나타내왔다. 이 계시가 발표되는 바로 직전까지 사탄이 주기적으로 칼리가스티아와 다른 몰락한 영주들을 방문한 것이

참말이며, 이 계시 발표 때에 최고반란자들의 절멸을 원하는 가브리엘의 탄원에 대한 첫 청문회가 있었다. 사탄은 지금 예루셈 감옥 세계들에서 분별불가적으로 억류되어 있다.

53:9.5 (611.4) 미가엘의 최종 증여 이후로 사타니아에 있는 어떤 존재도 억류된 반란자들을 돌보기 위해 감옥 세계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존재도 사기꾼의 주장에 넘어가지 않았다. 1,900년 동안 그 지위는 변화되지 않았다.

53:9.6 (611.5) 우리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최고반란자들에 대해 마지막 처분을 내릴 때까지 현재의 사타니아 제약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체계 순환회로들은 루시퍼가 살아있는 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그는 전혀 활동하지 못한다.

53:9.7 (611.6) 반란은 예루셈에서 이미 끝났다. 신성한 아들이 도착하자마자 그것은 몰락한 세계들에서 끝난다. 우리는 자비를 언제라도 받아들일 모든 반란자들은 이미 그렇게 했다고 믿는다. 우리는 개인성 실존의 이 반란자들을 파면시키게 될 번쩍이는 방송을 기다린다. 우리는 억류된

이 반란자들의 소멸을 발효시킬 집행 실시 방송에 의해 선포될 유버사의 판결을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그들이 있던 자리는 보게 되겠지만 그들은 볼 수 없을 것이다.”그리고 세상에서 너희를 아는 자들이 너희를 보고 놀랄 것이다; 너희는 두려움이 되어왔으나, 그러나 더 이상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자격 없는 이들 반란자 모두는 “그들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모두가 유버사 선포를 기다린다.

53:9.8 (611.7) 그러나 여러 시대 동안 사타니아의 영적 어둠의 일곱 감옥 세계들은 네바돈 전체에게 엄격하게 경고를 해왔는데, “죄인들의 길은 괴롭다”; “모든 죄 안에는 그 자체의 파괴의 씨앗이 들어 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감명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선포한다.

53:9.9 (612.1) [한때 유란시아의 접수자관계에 배속되었던 마노반덱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54 편 루시퍼 반란의 문제

54:0.1 (613.1) 진화하는 사람은 악, 잘못, 죄, 그리고 사악한 불의의 의미들을 파악하고 의의(意義)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사람은 대비가 되는 완전과

불완전이 잠재적 악을 산출한다는 것; 상반되는 진리와 허위가 혼란을 일으키는 잘못을 창조한다는 것; 자유의지 선택의 신성한 자질이 죄와 정의(正義)의 서로 갈라지는 영역 안에서 결국 생겨난다는 것; 신성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가 하느님의 왕국으로 인도한다는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사악한 불의의 권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감지하는 데에 느리다.

54:0.2 (613.2) 하느님들은 악을 창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와 반역을 허용하지도 않는다. 잠재적 악(惡)은 완전 의미들과 가치들의 차이 있는 차원들을 포용하는 우주 안에서의 시간-실존함 이다. 죄(罪)는 불완전한 존재들이 선과 악의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자질로서 부여받은 모든 영역에 잠재한다. 진리와 허구, 사실과 거짓말의 바로 그 상반되는 현존이 잘못의 잠재성을 이룬다. 악에 대한 고의적인 선택이 죄를 가져오며; 진리에 대한 고의적 거부가 잘못이다; 죄와 잘못에 대한 끈질긴 추구가 사악한 불의이다.

제 1 장. 참 해방과 거짓 해방

54:1.1 (613.3) 루시퍼 반역으로부터 발생한 복잡한 모든 문제들
중에서, 미성숙한 진화적 필사자들이 참 해방과 거짓
해방을 구분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없었다.

54:1.2 (613.4) 참 해방은 오랜 세월에 걸친 탐구요, 진화하는
진보에서의 포상이다. 거짓 해방은 시간의 잘못과 공간의
악에 대한 미묘한 속임수이다. 영구적인 해방은
공의(公義)의 실체—지성, 성숙, 형제우애관계, 그리고
동등성—에 입각한다.

54:1.3 (613.5) 해방은 그것의 동기가 비(非)지능적이고
무조건적이며 통제되지 않을 때, 그것은 조화우주적
실존에서의 자아-파괴가 일어나는 하나의 기법이다. 참
해방은 실체에 점진적으로 관계되며, 사회적 평등,
조화우주적 공정함, 우주 형제우애관계, 그리고 신성한
의무들을 언제까지나 넘치도록 살핀다

54:1.4 (613.6) 해방은 물질적 공의(公義), 지적 공정함, 사회적
자제, 도덕적 의무, 그리고 영적 가치들과 분리될 때
자멸적이다. 해방은 조화우주 실체와 동떨어져서 실존할
수 없으며, 모든 개인성 실체는 그것이 신성과 가지는
관계에 비례한다.

54:1.5 (613.7) 고삐가 풀린 자아-의지, 그리고 규제되지 않은 자아-표현은 누그러지지 않는 이기심, 곧 불경스러움의 절정과 같다 연관되면서 그리고 언제까지나-증가되는 자아의 정복 없이는, 해방은 이기적인 필사자의 상상에서 나온 산물이다. 자아-동기에서 촉발되는 해방은 개념적인 환상이요, 잔혹한 속임수이다. 해방의 옷으로 가장하고 있는 방종은 비참한 속박의 전조이다.

54:1.6 (614.1) 참된 해방은 진정한 자아-존중의 연관-동료이다; 거짓된 해방은 자아-찬미의 달콤한 동반자이다. 참된 해방은 자아-통제의 열매이다; 거짓된 해방은, 자아-주장의 추측이다. 자아-통제는 이타적 봉사로 이끈다; 자아-찬탄은 어떤 잘못된 개별존재가 자신의 이기적인 웅대함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이를 착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것이며, 그리하여 자신의 동료 존재들을 지배할 부당한 힘을 소유하려는 목적을 위하여, 정의로운 달성을 기꺼이 희생하고 있는 것과 같다.

54:1.7 (614.2) 지혜조차도 그것이 규모에서 조화우주적이고 동기에서 영적일 경우에만 신성하고 안전하다.

54:1.8 (614.3) 저마다 지니고 있는 자연본능적 해방을 그들 개인에게서 박탈할 목적으로 다른 존재들을 다스릴 힘의 행사를 갈망하도록 지능존재를 이끄는, 그러한 종류의 자아-기만보다 더 큰 잘못은 없다. 인간의 공정함에 관한 황금률은 그러한 모든 기만, 부당성, 이기심, 그리고 불의에 맞서 소리 높여 외친다. 오직 참되고 진정한 해방만이 사랑의 통치와 그리고 자비의 사명활동과 양립할 수 있다.

54:1.9 (614.4) 우주의 최극 통치자들이 이들 의지의 특권과 개인성의 잠재에 대한 자비로운 존중심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 있는데, 어떻게 감히 자아-의지적 창조체가 개인적 해방의 이름을 빌려 자기 동료의 권리를 침범한단 말인가! 어떤 존재도, 그가 추정하는 자신의 개인적 해방을 행사하면서 창조자들이 수여하고 그들의 모든 충성된 연관-동료들, 종속자들, 그리고 백성들에 의하여 당연히 존중되고 있는, 그러한 실존에서의 특권을 그 어떤 다른 존재에게서도 박탈할 권리가 없다.

54:1.10 (614.5) 진화적 사람은 죄와 사악한 불의의 세계에서 또는 원시적인 진화하는 구체의 초기 시대 동안 자신의 물질적

해방을 위해 폭군들 그리고 압제자들과 싸우지 않을 수 없겠지만, 모론시아 세계들 또는 영 구체들에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전쟁은 초기 진화적 사람의 유산이지만, 정상적으로 진보하는 문명의 세계에서는 인종적 오해들을 조절하는 기법으로서의 물리적 투쟁이 오래 전부터 나쁘게 평가되어 왔다.

제 2 장. 해방 탈취자

54:2.1 (614.6) 아들과 함께 그리고 영 안에서 하느님은 영원한 하보나를 구체적으로 투사하였고, 그 후로 계속 창조에서 조화-협동 참여—공유—의 영원한 원형틀을 달성해 왔다. 공유의 이 원형틀은 때에 맞추어 영원한 완전의 중앙우주를 복제하려고 시도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 공간 속으로 나아가는 하느님의 아들과 딸들 각자를 위한 본질적 설계이다.

54:2.2 (614.7)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열망하는 모든 진화 우주의 모든 창조체는 체험적 완전성 달성의 이 장엄한 모험 여행에서 시간-공간 창조자들의 동반자가 되도록 운명되어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창조적인 자유의지를 것처럼 창조체들에게 자질로서

부여하실 수 없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들에게
기꺼이 깃들어, 그 자신의 영을 수단으로 하여 그들과
실재적으로 동반자관계를 맺는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54:2.3 (614.8) 루시퍼의 어리석은 행동은, 할 수도 없는 일,
체험적 우주 안에서 시간의 단락(短絡)을 시도한
것이였다. 루시퍼의 범죄는 , 사타니아에 있는 모든
개인성의 반(反)국민권획득을 창조적으로 시도한 것,
개별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빛과 생명의 지위를
달성하려는 긴 진화적인 투쟁에의 창조체의 개인적
참여—자유의지 참여—를 인지하지 않고 박탈한
것이였다.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이 왕년의 너희 체계
주권자는, 모든 개인적 창조체에게 내려진 자유의지의
증여로서 계시되는 바와 같은, 하느님의 의지의 영원한
목적을 직접 가로질러, 자기 자신의 현세적 목적으로 정해
버렸다. 루시퍼 반역은 이처럼 사타니아 체계의 상승자와
봉사자들의 자유의지 선택을 가능한 최대한
침해—언젠가는 사타니아의 완전해진 체계로서 존재할
체험적 지혜를 향해 기념비를 천천히 세우는 일에,
독특하고 개인적인 무언가를 기여하는 떨리는 체험을,

이들 모든 존재에게서 박탈하려는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위협이었다. 그리하여 루시퍼 성명서는, 해방이라는 옷으로 변장하면서, 이성의 맑은 빛 안에서, 개인적 해방에 대한 탈취에서 절정에 이른 기념비적인 위협으로 두드러지고 있으며, 그리고 네바돈의 모든 역사에서 오직 두 번 접근되었던 규모로 행하는 것으로 두드러진다.

54:2.4 (615.1) 요약하자면, 하느님이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주셨던 것을 루시퍼가 그들로부터 빼앗고자 하였는데, 그것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로 이루어진 이 지역체계의 운명과 그들 자신의 운명에 대한 창조에 참여하는 신성한 특권이다.

54:2.5 (615.2) 우주 전체에서 어떤 존재도 다른 존재로부터 참 해방, 사랑하고 사랑 받을 수 있는 권리, 하느님을 경배하고 자기 동료들을 봉사하는 특권을 빼앗으려는 것을 정의로운 해방으로 가질 수는 없다.

제 3 장. 공의(公義)의 시간 지연

54:3.1 (615.3) 진화 세계들의 도덕적 의지 창조체들은 모든-지혜이신 창조자들이 왜 악과 죄를 허용하는가와 같은 생각없는 질문으로 늘 시달린다. 그들은 창조체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려고 한다면 두 가지 모두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진화하는 사람이나 매우 아름다운 천사의 자유 의지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 어떤 상징적 이상이 아니다.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은 하나의 우주 실체이다. 선택에 대한 이러한 자유로움은 최극 통치자들의 자질이며, 그들은 어떤 존재나 혹은 존재들의 집단에게도 넓은 우주 안에 있는 단 하나의 개인성에게서 신성하게 증여된 이 자유로움을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설사 빛나가고 무지한 존재들이 이러한 개인적 자유로움을 사칭하는 즐거움에 빠지는 그러한 만족을 준다 해도 자유로움을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54:3.2 (615.4) 의식적으로 그리고 전심(全心)으로 악(죄)과 정체화구현을 이루는 것이 비(非)실존(절멸)과 동등하다 하더라도, 죄(罪)와의 그러한 개인적 정체화구현과 형벌의 집행—악을 그렇게 고의적으로 채택한 것에 대한 자동적 결과—시기 사이에는 그러한 어떤 개별존재의 우주 지위에 대해, 모든 관련된 개인성들에게 전적으로 만족을 주는 그러한 판결이 허용되도록, 그리고 그것이 것처럼

공정하고 정당하여 죄를 지은자 스스로가 승인을 하는 그러한 승리를 얻을 정도로, 충분한 길이의 시간에서의 기간이 끼어 있어야만 한다.

54:3.3 (615.5) 그러나 만일 진리와 선의 실체에 대항하는 이 우주 반역이 평결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리고 만일 죄인이 자신의 유죄 판결의 공의(公義)를 가슴속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고백하기를 거부한다면, 판결 집행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사려 깊은 분별력에 따라 연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행악자 및 모든 관계된 지지자와 가능한 동정자 둘 모두의 안에서, 모든 도덕적 가치들과 모든 영적 실체들이 소멸될 때까지, 그 어떤 존재도 절멸시키기를 거절한다.

제 4 장. 자비의 시간 지연

54:4.1 (615.6) 놀라시아덱이라는 별자리에서 설명하기에 다소 어려운 또 하나의 문제는, 체포되고 억류되며 재판을 받기 전까지 루시퍼와 사탄 그리고 몰락한 영주들이 해독을 끼치도록 허용되었던 이유들에 관한 것이다.

54:4.2 (616.1) 자녀들을 낳고 키운 부모들은 창조자-아버지인 미가엘이 자기 자신의 아들들을 책망하고 파괴시키는

일을 왜 주저하는지를 더 잘 납득할 것이다. 방탕한 아들에 대한 예수의 이야기는 사랑 넘치는 아버지가 잘못을 저지르는 자녀의 회개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54:4.3 (616.2) 악을-행하는 창조체가 그릇된 일을 행하기—죄를 짓기—를 실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자유-의지성의 사실을 입증하며 만일 연장된 자비가 뉘우침과 회복을 이끌어낸다면 공의(公義) 실행에 있어서 그 어떤 지연도 충분하게 정당화한다.

54:4.4 (616.3) 루시퍼가 추구하였던 대부분의 해방들을 그는 이미 소유하고 있었다; 다른 것들은 그가 앞으로 받게 되어 있었다. 이들 모든 고귀한 자질은 성급함에 길을 내어주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추구하는 것을 소유하려는 그리고 그것을 우주의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다른 존재의 권리와 해방을 존중해야 하는 책무를 공개적으로 무시하면서 소유하려는 욕망에 굴복함으로서 잃게 되었다. 윤리적 책무들은 태생적이고, 신성하고 그리고 우주적인 것이다.

54:4.5 (616.4) **최극 통치자들이 루시퍼 반역의 영도자들을**
즉각적으로 괴멸하거나 억류시키지 않는 많은 이유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그리고
아마 더 나은 이유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공의(公義)의 실행을 유예시키는 자비의 특징은
직접적으로 네바돈의 미가엘에 의해 연장되었다. 잘못을
저지르는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이 창조자-아버지의
사랑을 제외하고, 초우주의 최극 공의(公義)가 활동해
왔다. 만일 루시퍼 반란과 같은 그러한 에피소드가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육신화된 동안 네바돈에서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악의 선동자들은 즉시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절멸(絶滅)되었을 것이다.

54:4.6 (616.5) **최극 공의(公義)는 신성한 자비에 의해 억제되지**
않을 때 즉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자녀들에 대한 자비의 사명활동이 이러한 시간 지연, 씨를
뿌리는 시간과 거두는 시간 사이에 있는 이 구원의 간격을
항상 제공한다. 만약에 뿌려지는 씨가 선하면, 이 간격은
성격의 시험과 개량을 위해 제공된다; 만일 뿌려지는 씨가
악하면, 이 자비로운 연기는 회개와 교정을 위한 시간을
제공한다. 행악자들에 대한 판결과 집행에서의 이 시간

지연은 일곱 초우주들의 자비 사명활동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다. 자비에 의한 이 공의(公義)의 억제는 하느님이 사랑이라는 것과, 그러한 사랑의 하느님이 우주들을 지배하고 자신의 모든 창조체들에 대한 숙명과 심판을 자비 안에서 통제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54:4.7 (616.6) 시간의 자비로운 연기는 창조자들의 자유로운 의지의 명령에 의해서이다. 죄로 물든 반역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이러한 인내의 기법으로부터 우주 안에 선(善)이 파생된다. 악을 꾀하고 실행하는 자에게는 악으로부터 선이 발생할 수 없음이 너무나 당연한 것과 같이, 하느님을 알고 그의 뜻을 실천하기를 사랑하며 그의 영원한 계획과 신성한 목적에 따라 파라다이스를 향해 상승하는 모든 존재들에게는 만물이(잠재적인 악과 현시된 악을 포함하여) 다 함께 합쳐서 선을 이룬다는 것도 똑같이 참이다.

54:4.8 (616.7) 그러나 이 자비의 지연은 무한한 것이 아니다. 루시퍼 반란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의 긴 지연(유란시아에서 계산되는 시간으로)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가 이루어지는 동안, 가브리엘 대 루시퍼의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청문회가 유버사에서 열렸고, 이후로는 사탄이 루시퍼와 함께 감옥 세계에 갇힐 것을 지도하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명령이 떨어졌음을 우리는 기록할 수 있다. 이것은 사타니아의 몰락한 세계들 중 어디에 더 방문할 수 있는 사탄의 능력에 종지부를 찍었다. 자비가 지배하는 우주에 있어서의 재판은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분명하게 있다.

제 5 장. 자연의 지혜

54:5.1 (617.1) 루시퍼와 그의 공모자들이 보다 빨리 억류되거나 판결을 왜 받지 않았는지 나에게 알려진 많은 이유들 중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54:5.2 (617.2) 1. 자비는 그의 악한 생각들과 죄로 물든 행위들에 관해 고의적이고 충분히 선택된 태도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모든 그릇된 일을 행한 자들이 가질 것을 요구한다.

54:5.3 (617.3) 2. 최극 공의(公義)는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그러므로 자비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을 공의(公義))가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은 모든 행악자들에게 허락되어 있다.

54:5.4 (617.4) 3. 어떤 애정 어린 아버지도 결코 자기 가족 중 잘못을 저지르는 구성원에게 벌을 가하려고 황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 인내는 시간과 독립하여 기능할 수는 없다.

54:5.5 (617.5) 4. 그릇된 행동은 한 가정에 항상 해독을 끼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혜와 사랑은 애정 어린 아버지에 의해 승락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죄지은 자가 자기 길에서의 잘못을 알고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정직한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형제를 참아내라고 타이른다.

54:5.6 (617.6) 5. 루시퍼를 향한 미가엘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그가 루시퍼의 창조자-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당시에 자신의 증여 생애를 완벽하게 끝내지 않았고 그리하여 네바돈의 분별불가적 주권을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신자 체계 주권자에 대해 즉석 재판을 행하는 것이 창조자 아들의 권한에 속하지 않았다.

54:5.7 (617.7) 6.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이 반역들을 즉각적으로 절멸(絶滅)시킬 수 있었지만, 그들은 충분한 의견 청취 없이는 그릇된 일을 행한 자들을 거의 처형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그들은 미가엘 결정들을 뒤엎는 것을 거절하였다.

54:5.8 (617.8)

7. 임마누엘이 미가엘에게 반역자들로부터 초연하게 남아있고 반란으로 하여금 자아-말소의 자연적인 과정을 따르도록 허용하라고 조언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연합으로 늘 계신이의 지혜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연합된 지혜의 시간 반영이다.

54:5.9 (617.9)

8. 에덴시아에 있는 충심으로 늘 계신이는 별자리 아버지들에게 반역자들로 하여금 놀라시아텍의 모든 현재 그리고 미래 시민들—모든 필사자, 모론시아, 또는 영 창조체—의 가슴속에서 이 행악자들에 대한 모든 동정심이 곧 뿌리째 뽑히게 되는 끝날 까지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허용하라고 충고하였다.

54:5.10 (617.10)

9. 예루셈에서는 오르본톤의 최극 집행자의 개인적 대표자가 가브리엘에게 조언하여, 루시퍼 해방 선언에 포함된 그 문제들에 있어서 신중한 선택을 하도록 모든 살아있는 창조체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게 하였다. 반역의 문제들이 부풀어 오르자, 가브리엘의 파라다이스 비상 충고자는, 그러한 충만하고 자유로운 기회가 모든 놀라시아텍 창조체들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가능성 있는 그러한 모든 마음이 내키지 않거나

의심에 싸인 창조체들이 전체 별자리에 대항하여 자아-보호 속에서 연장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놀라시아텍의 존재들에게 상승의 파라다이스 문들을 계속 열어놓기 위하여, 반역의 충분한 발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그것과 함께 모든 방법에 있어서 모든 존재들의 역할을 완벽하게 결정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54:5.11 (617.11) 10. 구원자별의 신성한 사명활동자는 그녀의 세 번째 별도 선언으로서 하나의 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것도 절반의 치료가 이루어지거나, 비겁하게 은폐되거나, 아니면 반역자들 그리고 반역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감출 수 없다고 지도하였다. 천사 무리는 악과 죄의 전염병에 대한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치료를 이룩하는 가장 빠른 기법으로써 죄-표현을 위한 무제한적 기회와 충분한 폭로를 위해 일하도록 지도를 받았다.

54:5.12 (618.1) 11. 비슷한 상황들에서 개인적 체험을 이미 가졌던 영화롭게 된 필사자인 막강한 메신저들인, 예전-필사자로 구성된 비상 협의회가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 예루셈에서 조직되었다. 그들은 만일 억압이라는 독단적 또는 즉결 방법들이 시도된다면 적어도 세 배나 되는 존재들이

그릇된 길로 인도될 것이라고 가브리엘에게 충고하였다. 조연자들로 구성된 전체 유버사 무리단은, 그 결말을 가져오기까지 백만 년이 필요된다고 하더라도, 반란이 충분하고도 자연적인 과정을 밟도록 허용할 것을 가브리엘에게 충고하는 일에 동의하였다.

54:5.13 (618.2) 12. 시간은, 심지어 시간의 한 우주 안에서도, 상대적이다: 만약에 평균적인 기간의 삶을 산 유란시아 필사자가 전 세계적 대혼란을 재촉한 죄를 범하였다면, 그리고 만일 그가 죄를 저지른 지 이틀이나 또는 삼일 안에 체포하고 재판하고 처형하였다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긴 시간으로 보이겠는가? 그렇지만 루시퍼의 판결이 유란시아 햇수로 10만년 동안 완결되지 못했고, 만약 지금 그것이 시작된다 해도, 바로 그러한 기간과 비슷하게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유버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 상대적 시간 상실은 루시퍼의 범죄가 그것의 범행에 2.5초 안에 시도되었다고 말함으로써 표시될 수 있다. 파라다이스의 관점에서 보면 판결은 법령과 동시적이다.

54:5.14 (618.3) 루시퍼 반란을 독단적으로 중지시키지 않은 것에는, 너희에게 부분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똑같은 숫자의 이유들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서술하도록 허락 받지 못했다. 나는 악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파산하고 영적으로 소멸하는 전체 과정을 밟도록 허용하여야 하는 48개의 이유들을 우리가 유버사에서 가르친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릴 수 있다. 나는 나에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추가적 이유들이 똑같이 있으리라고 믿는다.

제 6 장. 사랑의 승리

54:6.1 (618.4) 어떤 어려움들이 있든지, 진화적 필사자들은 루시퍼 반란을 납득하려는 그들의 노력에서, 반도들을 다루는 기법이 신성한 사랑을 입증한다는 것을 그것을 돌이켜 반영해보는 모든 사색가에게 분명하게 되어야만 한다. 반도들에게 확장된 사랑 넘치는 자비가 많은 죄 없는 결백한 존재들을 재판과 시련 속에 포함해 온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극도로 혼란스런 이들 모든 개인성들은 모든-지혜로운 재판관들이 공의는 물론 마찬가지로 자비 속에서, 그들의 운명을 판결할 것임을 안전하게 믿어도 될 것이다.

54:6.2 (618.5) 지능존재들에 대한 그들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창조자 아들과 그의 파라다이스 아버지 둘 모두 사랑에 지배당한다. 만약에 아버지로서의 하느님이 인간성에 대한 신성의 모든 관계들에 있어서 신(神) 현시활동의 다른 모든 위상들보다 앞선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반역자들과 반역—죄와 죄인들—을 향한 우주 통치자들의 태도의 여러 위상들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이 모두 자비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는 사실도 상기되어야만 할 것이다.

54:6.3 (618.6) 큰 가족의 자애로운 아버지가 심각한 그릇된 행위를 저지른 자기 자녀들 중 하나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품행이 옳지 못한 이 자식에게 자비를 확장시키기 위해 행실이 바른 다른 모든 자녀들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어려운 일을 시키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러한 결국 생겨나는 것들은 필연적이다; 그러한 모험은 사랑스러운 부모를 갖게 되는 그리고 가족 집단의 어떤 구성원이 되는 실체 상황과 분리될 수 없다. 한 가족의 각 구성원은 다른 모든 구성원의 의로운 행위성에 의해 유익을 얻으며; 마찬가지로 각 구성원은 다른 모든 구성원의 잘못된 행위성으로 인한 직접적 시간-영향들을 겪는다. 가족들,

집단들, 종족들, 세계들, 체계들, 별자리들, 그리고 우주들은 개별성을 소유하는 관계적-연합의 관계들이다; 그러므로 크든지 작든지 그러한 모든 집단의 각 구성원은 관계되는 집단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옳은 행위와 그릇된 행위의 영향을 받는다.

54:6.4 (619.1) 그러나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만일 너희가 너희 가족, 어떤 동료 시민 또는 동료 필사자, 심지어 체계 또는 다른 어느 곳에서의 반란의 어떤 구성원의 죄로 말미암는 악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면—너희가 너희 연관-동료들, 친구들, 또는 상급자들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무엇을 견디어내야 하는지 상관없이—그러한 시련들이 과도기 고통이라는 영원한 확신을 가지고 너희는 안심해도 좋다. 집단 안에서의 비행이 이들 형제우애에 미치는 결과 중, 그 어떤 것도, 결코 너희의 영원한 가능성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파라다이스 상승과 하느님 달성에서의 너희의 신성한 권한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빼앗을 수 없다.

54:6.5 (619.2) 그리고 반역이라는 죄에 변함없이 동반하는 이들 시련들, 지연들 그리고 실망에는 보상이 있다.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루시퍼 반역에 대한 가치 있는 많은 반향들 중에서, 나는 오직 필사자 상승자들의 향상된 생애에만 주의를 집중할 것인데, 그들은 죄의 궤변에 대항함으로써 장차 막강한 메신저들, 나와 같은 계층에서의 동료가 되는 줄에 자리를 차지했다. 악한 에피소드를 견디었던 모든 존재는, 그로써 자신의 행정-관리적 지위를 즉각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자신의 영적 가치를 강화시켰다.

54:6.6 (619.3) 처음에는 루시퍼 격변이 체계에 대하여 그리고 우주에 대하여 완화되지 못할 재난이 될 것처럼 보였다. 점진적으로 이익들이 발생되기 시작하였다. 체계 시간으로 2만 5천년(유란시아 시간으로 2만년)이 지나면서, 멜기세덱들이 루시퍼의 어리석은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것들이 초래된 악과 맞먹을 정도가 되었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전체의 악은 그때까지 거의 고정된 상태에 있었는데, 특정의 고립된 세계들에서만 증가되었고, 반면에 우주와 초우주에 두루 그리고 심지어는 하보나에 이르기까지 유익한 반향들이 계속 증가되고 확장되었다. 멜기세덱들은 이제 사타니아 반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선한 것들이 전체 악의 합계보다 수천 배에 달한다고 가르친다.

54:6.7 (619.4) 그러나 그릇된 행위의 그러한 색다르고도 유익한 추수는 오직, 에덴시아에 있는 별자리 아버지들로부터 파라다이스에 계신 우주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루시퍼의 상급자들 모든 분 전체의 현명하고 신성하며 자비로운 태도에 의해서만 생길 수 있었다. 시간의 흐름은 루시퍼의 어리석은 행동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필연적인 선을 증진시켜 왔으며; 유죄 선고를 받을 악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제법 충분히 발전되었기 때문에, 모든-지혜이신 멀리 내다보는 우주 통치자들이 점점 더 유익한 결과를 초래할 그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사타니아 반역자들을 체포하여 선고를 내리는 것을 지연시키는 추가적인 많은 이유들은 차치하고, 이 한 가지 소득은 왜 이 죄인들이 더 빨리 억류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선고를 받고 궤멸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54:6.8 (619.5) 멀리 보지 못하고 시간에 매여 있는 필사자 지능체들은 우주 관련사들에 대해 선견지명이 있는, 모든-지혜이신 행정-관리자들의 시간 지연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54:6.9 (620.1) 이들 문제에 관한 인간 사고(思考)의 한 가지 잘못은 만일 죄가 그들의 세계를 저주하지 않았다면 진화하는 행성에 있는 모든 진화적 필사자들이 파라다이스 생애에 들어가기로 선택하였을 것이라는 관념에 있다. 생존을 거부하는 능력은 루시퍼 반역의 시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필사자 사람은 파라다이스 생애에 대한 자유의지 선택의 자질을 항상 소유해 왔다.

54:6.10 (620.2) 너희가 생존하는 체험 속에서 상승하면서 그에 따라, 너희는 우주 개념들을 넓히고 의미들과 가치들의 범위를 확장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루시퍼와 사탄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왜 반역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되었는지를 더 잘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또한 궁극적 선(善)이 (만일 즉각적이 아니라면) 시간에-제한되어 있는 악으로부터 어떻게 유래될 수가 있는지 더 잘 이해할 것이다. 너희가 파라다이스를 달성한 후에, 너희는 초천사 철학자들이 우주 조절의 이들 난해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설명하는 것을 듣게 될 때, 실제로 깨우치게 되고 그리고 위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때가 되어도, 나는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마음속에

충분한 만족감을 갖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나는 내가 우주 철학의 정상을 그렇게 달성하였을 때에도 그렇지 못하였다. 나는 초우주 안에서 관리-행정적 임무에 배정된 후에야 이 복잡성들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성취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실재적인 체험에 의해 조화우주 평형과 영적 철학 안에서 그러한 다방면의 문제들에 대해 이해하기에 충분한 개념적 능력을 획득하였다. 너희가 파라다이스를 향하여 상승할 때, 너희는 우주 관리-행정의 문제를 지닌 듯한 많은 모습들이 오직 증가되는 이 체험적 능력의 성취에 따라 그리고 증진된 영적 통찰력의 달성에 따라 납득될 수 있을 뿐임을 점점 더 배우게 될 것이다.

54:6.11 (620.3) [현재 오르본톤 초우주 정부에 배정되었고 구원자별의 가브리엘의 요청에 따라 이 문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간 우주들의 첫 번째 체계 반역에서 체험적으로 생존된 막강한 메신저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55 편 빛과 생명의 구체

55:0.1 (621.1) 빛과 생명의 시기는 시간과 공간 세계의 최종적인 진화적 달성이다. 원시인의 초기 시대 이후로, 그렇게

거주민이 사는 세계는 이어지는 행성 시대들—행성영주 이전- 그리고 이후- 시대, 아담의-이후 시대, 치안법관 아들 이후 시대, 그리고 증여 아들 이후 시대—을 지나 왔다. 그 후에 그러한 세계는, 신성한 진리와 우주적 지혜에 대한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의 계속적인 진보의 계시들과 함께 그들의 이어지는 행성 사명들의 사명활동에 의해, 최고조에 달한 진화적 달성, 빛과 생명의 정착된 지위를 위해 준비된다.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최종적인 행성 시대를 맞이하는 일에 교사 아들들은 찬란한 저녁별들의 도움을 항상 받고 멜기세덱들의 도움을 가끔 받는다.

55:0.2 (621.2) 교사 아들들의 최종적인 행성 임무가 끝날 때 그들에 의해 개시되는 이 빛과 생명의 시대는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 무기한적으로 계속된다. 정착된 지위로 나아가는 각각의 단계는 치안법관 아들들의 사법적 조치들에 의해 연속되는 섭리시대들로 구분되겠지만; 그러한 모든 사법적 조치들은 순전히 기술적이고, 어떤 면에서도 행성 사건들의 과정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55:0.3 (621.3) 초우주의 주요 순환회로들 안에서의 실존을 달성한 행성들만이 계속적인 존속을 보장받지만, 우리가

아는 한,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한 이 세계들은 모두 미래
시간의 영원한 시대들에 두루 계속 나아갈 운명에 있다.

55:0.4 (621.4) 진화 세계에서 빛과 생명의 시대의 전개에는 일곱
단계들이 있으며, 이 점에 있어서 영-융합 필사자들의
세계들이 조절자-융합 계열들의 그것들과 똑같은
계통으로 진화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빛과
생명의 이 일곱 단계들은 다음과 같다:

55:0.5 (621.5) 1. 첫 번째 또는 행성 단계.

55:0.6 (621.6) 2. 두 번째 또는 체계 단계.

55:0.7 (621.7) 3. 세 번째 또는 별자리 단계.

55:0.8 (621.8) 4. 네 번째 또는 지역우주 단계.

55:0.9 (621.9) 5. 다섯 번째 또는 소구역 단계.

55:0.10 (621.10) 6. 여섯 번째 또는 대구역 단계.

55:0.11 (621.11) 7. 일곱 번째 또는 초우주 단계.

55:0.12 (621.12) 이 설명의 결론에서, 진보하는 발달의 이
단계들이 우주 조직과 관련되는 것으로 묘사되겠지만,

모든 단계의 행성 가치들은 다른 세계들의 발달에 대해 매우 독립된 또는 우주 관리-행정의 초(超)행성 차원들에 대해 매우 독립된 모든 세계들에 의해 달성될 것이다.

제 1 장. 모론시아 성전

55:1.1 (622.1) 거주되는 세계의 수도에 있는 모론시아 성전의 현존은 빛과 생명의 정착된 시대들에게 그러한 구체가 받아들여졌다는 증명서와 같다. 교사 아들들이 그들의 마지막 임무를 완료하면서 세계를 떠나기 전에, 그들은 진화적 달성의 이 최종적 신(新)시대의 막을 열며; “거룩한 성전이 땅 위로 내려오는” 그 날을 주관한다. 이 사건은, 빛과 생명의 시대의 여명을 알려주는데, 이 위대한 시대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는, 행성의 파라다이스 증여 아들의 개인적 현존에 의해 항상 영광을 받는다. 비할 바 없이 아름다운 이 성전 안에서는, 파라다이스의 이 증여 아들이 오랫동안의 행성영주를 새로운 행성주권자로 선포하고 그러한 신실한 라노난덱 아들에게 새로운 권한들을 부여하고 행성 관련사들에 대한 권한을 확장시킨다. 체계 주권자는 또한 이 선언서들의 증거로 출현하고 말한다.

55:1.2 (622.2) 모론시아 성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가장 중심부는 파라다이스 증여 아들의 경배실이다. 오른쪽은 지금은 행성주권자인, 이전 행성영주의 보좌이다; 성전 안에 나타났을 때, 이 라노난텍 아들은 영역의 비교적 더 영적인 개별존재들의 눈에 보인다. 왼쪽에는 행성에 배정된 최종자의 대리 우두머리의 보좌가 있다.

55:1.3 (622.3) 행성 성전들이 비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처럼 이야기되어 왔지만, 실체 안에서 어떤 실재적 물질도 체계 본부로부터 옮겨지지 않는다. 각각의 고안건축물은 체계 본부에서 축소모형으로 만들어지고, 그 후에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이 승인된 이들 계획을 행성으로 가져온다. 여기에서, 주(主)물리통제자들과 관계적-연합하여, 그들은 설계도에 따라 모론시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다.

55:1.4 (622.4) 평균적인 모론시아 성전은 약 30만 명의 관객들이 앉을 수 있다. 이 건물들은 경배, 연극 또는 방송을 청취하는 일에 이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행성의 특별한 예식에만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체계 주권자와 또는 지고자들과의 통신, 영 존재들의 개인성 현존을

드러내도록 고안된 특별한 시각화 예식들, 그리고 고요한 조화우주 깊은 사색. 조화우주 철학 학교들이 그들의 졸업 연습을 여기에서 수행하며 영역의 필사자들이 높은 사회봉사의 성취에 대한 그리고 다른 뛰어난 재능들에 대한 행성적 표창을 받아들이는 것도 여기에서이다.

55:1.5 (622.5) 그러한 모론시아 성전은 또한 모론시아 실존에게 살아있는 필사자들의 전환을 목격하기 위한 모임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전환 성전이, 자신들의 신성한 조절자들과의 최종적인 융합을 그 안에서 체험한 저들 필사자들의 물리적 몸체들을 아주 완벽하게 소멸시키는 타오르는 불의 맹렬한 빛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모론시아 물질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큰 세계의 경우 이 이별 섬광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환의 숫자가 증가됨에 따라, 보조 모론시아 삶 성전들이 행성의 다른 지역들에서 제공된다. 얼마 전에 나는 25개 모론시아 성소들이 작동하고 있는 먼 북쪽에 있는 세계에 머문 적이 있다.

55:1.6 (622.6) 안정되기 이전의 세계들, 모론시아 성전들이 없는 행성들에서는, 전환 후보자의 물질 몸체가 중도

창조체들과 물리통제자들에 의해 상승되는 행성의 대기 속에서 이들 융합 섬광이 여러 번 발생한다.

제 2 장. 죽음과 전환

55:2.1 (623.1) 자연적인, 물질적 죽음은 필사자적 필연성이 아니다. 진보된 진화 존재들의 대다수, 빛과 생명의 최종적 시대에 존재하는 세계들의 시민은 죽지 않는다; 그들은 육신 속에서의 삶으로부터 모론시아 실존으로 직접 전환된다.

55:2.2 (623.2) 물질적 삶으로부터 모론시아 상태로 전환되는 이 체험—불멸 혼의 내주하는 조절자와의 융합—은 행성의 진화적 발전과 같은 정도로 빈도가 증가한다. 처음에는 각 시대에 오직 소수의 필사자만이 영적 진보의 전환 차원을 달성하지만, 교사 아들들의 이어지는 시대들이 시작되면서, 점점 더 많은 조절자 융합이 진보하는 이들 필사자의 길어지는 삶이 마감되기 전에 발생하며; 교사 아들들의 마지막 임무의 시대가 되면, 뛰어난 이 필사자들 중 거의 4분의 1이 자연적 죽음에서 제외된다.

55:2.3 (623.3) 빛과 생명의 시대 속에서 오래 지나갈수록 중도 창조체들 또는 그들의 연관-동료들은 혼-조절자 연합이

가능한 지위로 다가감을 느끼며 이것을 운명 수호자들에게 알려주는데, 그 뒤에 그들은 관할권 아래에서 이 필사자가 활동할 수 있는 최종자 집단에게 이 문제들을 전 한다; 그 다음에는 그러한 필사자로 하여금 모든 행성 임무들을 떠나게 하는 행성주권자의 명령이 내려지고, 그가 기원된 세계에 작별을 고하며, 행성주권자의 내부 성전으로 모여드는데, 그곳에서 모론시아 변화, 진화라는 물질적 권역으로부터 영-이전(以前) 진보의 모론시아 차원으로의 전환 순간을 기다린다.

55:2.4 (623.4) 그러한 융합 후보자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일하는 집단이 모론시아 성전에서 다 모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융합 후보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때로는 모인 그들의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중앙 무대 주변에 분포된다. 개입하는 천상의 개인성들로 이루어진 단체가 마련되는데 그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육신으로부터 구원된 자들을 위하여 자연적 죽음이 이루는 모든 것을 진화적 필사자를 위해 그것으로 인하여 행함으로써, 물질적 육신의 족쇄들로부터 상승 후보자를 구원하는

“생명 섬광”의 순간에 에너지 현시의 작용으로부터 물질적
필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55:2.5 (623.5) 많은 융합 후보자들이 넓은 성전에서 동시에 모일
수 있다. 그리고 필사자들이 영적인 감격 속에서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승을 목격하기 위하여 그렇게 함께
모였을 때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필사자들이 자신들의 시신을 지상의 원소들의 세계로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을 그들의 초기 시대와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인간 진화의 초기 신(新)시대의 눈물로
얼룩지고 비탄에 젖은 광경들은, 하느님을 아는 이
필사자들이 소멸하는 장엄함과 상승하는 영광의 영적
불꽃들에 의해 자신들의 물질적 관계적-연합으로부터
그들이 떠나갈 때 자신들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깐
동안의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이제는 무아지경의 기쁨과
최고로 장엄한 감격으로 대치된다.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된
세계들에서는 “장례식”이 최극의 기쁨과 심오한 만족감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희망이 있는 행사이다.

55:2.6 (623.6) 진보하는 이 필사자들의 혼들은 신앙과 소망
그리고 확신으로 점점 더 채워진다. 전환 성소 주변에 모인

그들에게 스며드는 영은, 자기 집단에 속한 어느 한 사람을 위해 졸업식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또는 자신들의 동료들 중 하나에게 큰 상이 수여되는 것을 보기 위해 모일 수 있는 기쁨에 넘친 친구들과 친척들의 그것과 흡사하다. 그리고 그것은 만일 비교적 덜 진보된 필사자들이 자연적인 죽음을 이 동일한 명랑함과 쾌활함의 어떤 것에 비추어 보도록 배울 수만 있다면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55:2.7 (624.1) 필사자 관찰자들은 융합 섬광 때문에 전환되는 자신들의 연관-동료들을 전혀 볼 수 없다. 조절자에 의해 진행된 그러한 전환된 혼들은 적절한 모론시아-훈련 세계의 부활실로 직접 옮겨진다. 살아있는 인간 존재들이 모론시아 세계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된 이 활동행위들은 빛과 생명 안에 처음으로 정착되었던 때 그 날 그러한 세계에 배정되었던 천사장에 의해 감독된다.

55:2.8 (624.2) 세계가 빛과 생명의 네 번째 단계를 달성할 때가 되면, 반 이상의 필사자들이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로부터 전환에 의해 행성을 떠난다. 그러한 죽음의 감소가 계속되지만, 나는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이 포함된 어떤 체계도, 심지어는 생명 속에 오랫동안 정착되었다

하더라도, 육신의 족쇄로부터 탈출하는 기법으로서의 자연적인 죽음으로부터 전반적으로 벗어난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행성 진화의 그러한 높은 상태가 균일하게 달성되기 전까지는, 지역우주의 모론시아-훈련 세계들은 진화하는 모론시아 진보자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문화 구체로서 계속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죽음의 배제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내가 관측한 바로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다. 아마 그러한 지위는 정착된 행성 생명의 일곱 번째 단계 다음 먼 훗날에 달성될지도 모르겠다.

55:2.9 (624.3) 정착된 구체들의 꽃이 만발한 시대에서의 전환된 혼들은 맨션세계들을 거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체계 또는 별자리의 모론시아 세계들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머물지도 않는다. 그들은 모론시아 삶의 비교적 초기 위상들 중 어떤 것도 거치지 않는다. 그들은 물질적 실존으로부터 반(半)영적 지위로의 모론시아 변환을 거의 탈피한 상승 필사자들일 뿐이다. 상승 생애 속에 있는 그러한 아들-점유 필사자들의 최초 체험은 우주 본부의 진보 세계들에 대한 봉사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자별의 이 학습 세계들로부터 자신들이 지나온 바로

그 세계들에게로 선생으로서 돌아가는데, 그 후에는
필사자 상승의 확립된 경로에 의해 파라다이스를 향해
안쪽으로 나아간다.

55:2.10 (624.4) 너희가 진보된 발달 단계에 있는 행성을 방문할
수만 있다면, 맨션 그리고 그보다 높은 모론시아
세계들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서로 다른 접대가
이루어지는 이유를 빨리 파악할 것이다. 너희는 그러한
높게 진화된 구체들로부터 지나온 존재들이 유란시아와
같은 혼란하고 뒤쳐진 세계로부터 도착하는 평균적인
필사자보다 훨씬 앞서서 파라다이스 상승을 다시
시작하도록 준비되어 있음을 빨리 납득하게 될 것이다.

55:2.11 (624.5) 인간 존재들이 행성 달성의 어떤 차원으로부터
모론시아 세계들로 상승하였든지, 일곱 맨션구체들은
그들이 태어난 행성들의 발전 지위 때문에 그들이 지나쳐
오지 못한 모든 것 전체를 선생-학생으로서 체험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한다.

55:2.12 (624.6) 우주는 그의 상승 체험에 필수적인 어떤 것을 어떤
상승자도 뺏을 수 없도록 보장하게 고안된 이 균등화
기법들의 적용을 반드시 이룩한다.

제 3 장. 황금 시대

55:3.1 (624.7) 빛과 생명의 이 시대 동안 세계는 점점 더 행성주권자의 아버지다운 통치 아래에서 번영한다. 이때가 되면 세계들은 한 언어, 한 종교, 그리고 평균적인 구체에서는 한 인종의 추진력 아래에서 진보한다. 그러나 이 시대는 완전하지 않다. 이 세계들은 준비가 잘된 병원들, 환자들을 돌보기 위한 집들을 여전히 갖고 있다. 노년의 허약함과 노망으로 인한 혼란함에 따르는 우연한 현상적인 질병과 우연한 상처를 돌보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질병은 전반적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육지 동물들도 완전하게 정복되지 않지만; 그러한 세계들은 행성영주 이전 시대 동안에 해당하는 원시인의 초기 시대와 비교하면 파라다이스와 같다. 너희는 그러한 세계를 직관적으로—너희가 이러한 발달 단계에 있는 행성으로 갑자기 옮겨질 수 있다면—땅 위에 있는 천국으로 묘사할 것이다.

55:3.2 (625.1) 물질적인 관련사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 정부는 상대적인 진보와 완전의 이 시대에 두루 계속 기능을 발휘한다. 내가 최근에 방문한 바 있는 빛과 생명의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세계의 공공 활동은 십일조(十壹租)의

기법에 의해 재력을 유지한다. 모든 성인 노동자—그리고 무엇인가 일을 하는, 육신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시민들—는 자신의 수입에서 10%를 지불하거나 공공 기금에 납부하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지불되었다:

55:3.3 (625.2) 1. 3%가 진리의 증진—과학, 교육, 철학—에 사용되었음.

55:3.4 (625.3) 2. 3%가 미(美)—연극, 사회적 여가, 예술—에 지불되었음.

55:3.5 (625.4) 3. 3%가 선(善)—사회적 봉사, 이타심, 종교—에 바쳐졌음.

55:3.6 (625.5) 4. 1%가 우연한 현상, 질병, 노년, 또는 예방할 수 없는 재난으로부터 생기는 노동 불가능의 위험에 대비하여 확보하는 보험금에 배정되었다.

55:3.7 (625.6) 이 행성의 천연 자원들은 사회적 소유물, 공동사회의 자산으로 관리-운영되었다.

55:3.8 (625.7) 이 세계에서는 시민(市民)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영예가 "최극 봉사"의 등급이었는데, 모론시아 성전에서 전에 수여된 유일하게 인정받는 등급이다. 이 상(賞)은

초물질적 발견 또는 행성의 사회적 봉사의 어떤 위상에서 오랫동안 스스로 두각을 나타낸 자에게 수여되었다.

55:3.9 (625.8) 사회적 그리고 행정-관리적 지위들 대부분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공동으로 차지한다. 대부분의 교육 역시 공동으로 행해지며; 마찬가지로 모든 사법 위원회들도 비슷한 연관 쌍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55:3.10 (625.9) 이들 뛰어난 세계에서는 자녀를 잉태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한 가족에서 자녀들의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은 좋지 않다. 서로 나이가 비슷할 때, 자녀들은 자신들의 서로간의 훈련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세계에서는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善)의 통달에서 다양한 성취의 진보하는 권역과 분야에서 격렬한 분투의 경쟁체계에 따라 아낌없이 훈련된다. 영화롭게 된 그러한 구체들이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악을 풍부하게 내보이는 것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오히려 진리와 실수, 선(善)과 악, 죄와 정의(正義) 사이에서 선택의 동기가 되는 것들이다.

55:3.11 (625.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진보된 진화적 행성들에 있는 필사자 실존들에게 부여된 어떤 특별한,

어쩔 수 없는 벌칙이 존재한다. 정착된 세계가 빛과 생명의 세 번째 단계를 넘어 진보할 때, 모든 상승자들은, 소구역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진화의 비교적 초기 단계를 거치고 있는 행성에서 어떤 종류의 과도기 임무를 받아들이기로 운명되어 있다.

55:3.12 (626.1) 이어지는 이 시대들 각각은 행성 기능의 모든 위상들에서 진보된 성취를 나타낸다. 빛의 최초 시대에 진리의 계시는 우주들의 우주의 활동들을 포용할 정도로 커지게 되며, 반면에 두 번째 시대의 신(神) 연구는 칠중 하느님의 첫 번째 차원인 창조자 아들들의 본성, 임무, 사명활동, 관계적-연합, 기원, 그리고 운명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정복하려는 시도이다.

55:3.13 (626.2) 유란시아와 같은 크기의 어떤 행성은, 매우 잘 정착되었을 때, 약 100개의 보조 관리-행정적 중심지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보조 중심지들은 다음과 같은 분별화되는 관리-행정자들 중 하나에 의해 지배될 것이다:

55:3.14 (626.3) 1. 통치하는 아담과 이브에게 보좌관들로서 행동하도록 체계 본부로부터 데려온 젊은 물질아들들 그리고 딸들.

55:3.15 (626.4) 2. 특정한 세계들에서 이 의무들 그리고 비슷한 다른 의무들을 위해 조성되었던 행성영주의 반(半) 필사자 참모진의 자손.

55:3.16 (626.5) 3. 아담과 이브의 직접적인 행성 자손.

55:3.17 (626.6) 4. 물질화 되고 인간화된 중도 창조체들.

55:3.18 (626.7) 5. 자신들의 청원에 따라, 행성에서 어떤 중요한 관리-행정적 지위들을 그들이 계속 갖기 위하여, 우주 수령관계 역할을 하는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의 명령에 의해 일시적으로 전환으로부터 제외된, 조절자-융합 지위의 필사자들.

55:3.19 (626.8) 6. 모론시아 성전의 최극의 봉사에 대해 명령을 가외(加外)로 받아온 행성 관리-행정 학교의 특별하게 훈련된 필사자들.

55:3.20 (626.9) 7. 특별한 행성 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어떤 분명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그들의 특별한 능력에 따라 행성주권자의 지도 아래에서 시민에 의해 언젠가 선택될 올바르게 자격이 갖추어진 세 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특정의 선택적 위원회.

55:3.21 (626.10) 빛과 생명의 높은 행성 운명을 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유란시아 앞에 놓인 커다란 장애는 질병, 퇴화, 전쟁, 다색 인종들, 그리고 복잡한 언어들의 문제 속에 내포되어 있다.

55:3.22 (626.11) 어떤 진화 세계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종교, 그리고 하나의 철학을 성취하기 전에는 빛으로의 정착달성의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서 진보하는 것을 바랄 수 없다. 한 종족이 되는 것은 그러한 성취가 크게 수월하겠지만, 유란시아의 많은 민족이 보다 높은 단계에 대한 달성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 4 장. 행정적 재(再)조절

55:4.1 (626.12) 정착된 실존의 이어지는 단계들에 있어서,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은 육신 속에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사명활동하기 위해 되돌아왔던 파라다이스 달성의 상승자들인 자발적인 최종의 무리단의 현명하고도 동정심 가득한 관리-행정 아래에서 장엄한 진보를 이룩한다. 이 최종자는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과 협동하여 활동하지만, 그들은 모론시아 성전이 지상에 나타나기 전에는 세계 관련사들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기를 시작하지 않는다.

55:4.2 (626.13) 최종의 무리단의 행성 사명활동이 정식으로 출범함에 따라, 천상의 무리가 철수한다. 그러나 세라핌천사 운명의 수호자들은 빛 가운데에서 진보하는 필사자들에 대한 그들의 직접적 사명활동을 계속 한다; 정말로 그러한 천사들은 행성 삶 기간 동안 조화-협동하는 필사자 달성의 제3 조화우주 순환계에 점점 더 많은 인간 존재 집단들이 도달하는 데에 두루 계속 증가하는 숫자로 도래한다.

55:4.3 (627.1) 이것은 그들이 정착된 실존의 첫 번째 단계로부터 일곱 번째에 이르기까지 지나갈 때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 점점 더 찬란한 달성을 이루는 계속적인 시대들의 전개에 참여한 계속적인 행정-관리적 조절들의 첫 번째에 불과하다.

55:4.4 (627.2) 1. 빛과 생명의 첫 번째 단계. 정착된 최초 단계에 있는 세계는 다음과 같은 세 명의 통치자들에 의해 관리-운영 된다:

55:4.5 (627.3) 1. 행성에서 기능하는 그러한 아들들로 이루어진 마지막 무리단의 우두머리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조언하는 삼위일체 교사 아들에 의해 현재 충고를 받게 되어 있는, 행성주권자.

55:4.6 (627.4) 2. 최종자로 구성된 행성 무리단의 우두머리.

55:4.7 (627.5) 3. 영주-주권자 그리고 최종자의 우두머리의 이원적(二元的) 지도 체제의 통합자로서 함께 기능하는, 아담과 이브.

55:4.8 (627.6) 고양되고 해방된 중도 창조체가 세라핌천사 수호자와 최종자를 위해 통역자로 활동한다. 마지막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삼위일체 교사아들의 최종적인 활동은 영역의 중도자들을 해방하고, 그들을 진보된 행성 지위로 증진(또는 복귀)시키고, 정착된 구체의 새로운 관리-행정 체제 안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그들을 배치하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들은, 그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초기 아담의-통치체제의 이들 사촌들을 필사자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 시력의 범위에 이미 이루어져 온 것이다. 이것은 주(主)물리통제자들의 커지게 된 행성 기능들과 연락하여 물질적 과학의 최종적인 발견들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55:4.9 (627.7) 체계 주권자는, 첫 번째 정착 단계 이후, 언제든지 중도 창조체들을 해방시킬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렇게 하여 그들이 생명운반자들과 물리통제자들의 도움에 의해 인간화되고, 그리고 생각 조절자들을 받은 후에, 모론시아 안에서, 그들의 파라다이스 상승을 시작해 나아간다.

55:4.10 (627.8) 주로 최종자를 위한 접촉 개인성들로서, 중도자들 중 일부는 세 번째 그리고 그 이후 단계들에서 계속 활동하지만, 빛과 생명의 각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계층의 연락 사명활동자들이 중도자들 대부분을 대체시키며; 그들 중 극소수는 빛의 네 번째 단계가 지날 때까지 계속 남는다. 일곱 번째 단계는 특정의 우주 창조체들을 대신하여 봉사하기 위해 파라다이스로부터 첫 번째 아(亞)절대적 사명활동자들이 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55:4.11 (627.9) 2. 빛과 생명의 두 번째 단계. 이 신(新)시대는 필사 종족을 정화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한 더 많은 수고들을 함에 있어서 행성 통치자들의 자발적 충고자들이 되는 생명운반자의 도착에 의해 세계들에게 신호가 보내진다. 그리하여 생명운반자들은 인간 종족의 더 많은

진화—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지적, 철학적, 조화우주, 그리고 영적 본성에 있어서 열등한 잠재를 갖는 뒤쳐지고 잔존하는 남은 자들을 과감하게 제거시킴으로 인하여 필사 종족을 더욱 정화시키는 일에 대한 그들의 감독을 확장시킨다.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서 생명을 계획하고 심는 그들은 물질아들들과 딸들에게 충고할 수 있는 충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해로운 영향력들을 갖고 있는 진화하는 종족을 없애는 충만하고도 무조건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55:4.12 (627.10) 두 번째 단계 이후부터, 정착된 행성의 생애에 두루, 교사 아들들은 최종자에게 조연자들로써 봉사한다. 그러한 임무들을 수행하는 동안, 그들은 지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원자들로써 봉사 한다; 그들은 체계 주권자의 동의에 따라 그들이 행성 아담과 이브에게 충고자들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적으로 최종자 무리단과 함께 봉사한다.

55:4.13 (628.1) 3. 빛과 생명의 세 번째 단계. 이 신(新)시대 동안,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은 칠중 하느님의 두 번째 위상인

옛적으로 늘 계신이로부터 새로운 인정을 받게 되며, 이 초우주 통치자들의 대표자들은 행성 관리-행정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다.

55:4.14 (628.2) 정착된 실존의 이어지는 각시대에 있어서 최종자는 계속 증가하는 능력으로 활동한다. 최종자와 저녁별들(초(超)천사들) 그리고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 사이에는 긴밀한 활동 관계가 존재한다.

55:4.15 (628.3) 이 시대 또는 뒤따르는 시대 동안, 4인조의 사명활동-영에 의해 보조를 받는 교사 아들은 세상 관련사들에 대한 공동 관리행정자로서 행성주권자와 이 때 연관하게 되는, 선발된 필사자 우두머리 집행자에게 배정된다. 이 필사자 우두머리 집행자들은 행성 시간으로 25년 동안 봉사하며, 행성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이어지는 시대들 동안 긴-세월 배정된 그들의 세계로부터 분명하게 풀려나는 일이 쉽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새로운 개발이다.

55:4.16 (628.4) 4인조 사명활동-영은 구체의 세라핌천사 우두머리, 초우주 2품천사의 조연자, 전환의 천사장, 그리고 체계 본부에 머무는 배정된 파수자의 개인적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전(全)천사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충고자들은 그것이 요청되지 않는 한 결코 조언을 제의하지 않는다.

55:4.17 (628.5) 4. 빛과 생명의 네 번째 단계. 세계들에서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이 새로운 임무를 띠고 나타난다. 매우 오랫동안 그들의 계층과 연관된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의 보조를 받아, 그들은 이제 행성주권자 그리고 그의 동료들에게 자발적인 조언자와 충고자로서 세계들로 온다. 그러한 쌍—파라다이스-하보나-삼위일체화 아들들 그리고 상승자-삼위일체화 아들들—은 행성 통치자들에게 높게 봉사할 수 있는 다른 우주 관점들과 다양한 개인적 체험들을 나타낸다.

55:4.18 (628.6) 이 시대 이후 언제든지 행성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파라다이스 상승을 시작하기 위하여 행성 임무들로부터 풀려날 것을 주권자 창조자 아들에게 청원할 수 있으며, 또는 초우주의 본부로부터 2품천사와 함께 쌍으로 협력하도록 이 세계들에게 현재 배정되어 있는, 찬란한 저녁별들에 의해 묘사된 최종자의 철학적 가르침들을 이해하려고 분투하는 진보된 필사자들로 구성된 점점 더

영적인 사회의 새롭게 출현하는 계층의 감독자로서
행성에 남을 수 있다.

55:4.19 (628.7) 최종자는 주로 사회의 새로운 그리고
초(超)물질적인 활동들—사회적, 문화적, 철학적,
조화우주, 그리고 영적—을 시작하는 일에 참여한다.
우리가 인식하는 한, 그들은 외부 공간에서 사명활동하기
위해 아마도 앞으로 나가게 될 진화적 안정성의 일곱 번째
신(新)시대 속으로 멀리 이 사명활동을 계속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자리들이
파라다이스로부터의 아(亞)절대적 존재들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추측한다.

55:4.20 (628.8) 5. 빛과 생명의 다섯 번째 단계. 정착된 실존의 이
단계의 재(再)조절들은 거의 전반적으로 물리적인 권역에
속하며 주(主)물리통제자들에게 1차 관계에 해당된다.

55:4.21 (628.9) 6. 빛과 생명의 여섯 번째 단계는 영역의 마음
순환회로들의 새로운 기능들이 개발되는 것을 목격한다.
조화우주 지혜는 마음의 우주 사명활동의 요소가 된다.

55:4.22 (628.10)

7. 빛과 생명의 일곱 번째 단계. 일곱 번째 신(新)시대의 초기에 행성주권자의 삼위일체 교사 조언자가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보낸 자발적 충고자와 합쳐지고, 나중에 그들은 초우주 최극집행자로부터 보냄을 받는 세 번째 조언자에 의하여 증강될 될 것이다.

55:4.23 (629.1)

그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신(新)시대 동안에 아담과 이브가 항상 행성 임무들로부터 풀려난다. 최종자 무리단에 물질아들이 존재한다면, 그는 필사자 집행자 우두머리와 연관하게 될 것이며, 언젠가 멜기세덱이 이 능력으로 활동하기 위해 자원한다. 만일 중도자가 최종자 가운데 있다면, 행성에 남아 있는 계층 전체가 즉각 풀려난다.

55:4.24 (629.2)

그들의 긴 세월의 임무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순간, 행성 아담과 이브는 다음과 같은 생애들을 선택할 수 있다:

55:4.25 (629.3)

1. 그들은 행성 석방을 확보할 수 있으며 우주 본부로부터 파라다이스 생애를 즉각 시작하게 되는데, 모론시아 체험이 완료될 때 생각 조절자들을 받는다.

55:4.26 (629.4) 2. 행성 아담과 이브는, 일정 기간의 행성 봉사를 자원해온 그들의 수입된 순수-계통 자녀들의 일부가 조절자들을 받게 됨과 동시에, 빛에 정착된 세계에서 아직 봉사하는 동안 조절자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 후에 그들은 모두 우주 본부로 갈 수 있으며 거기에서 파라다이스 생애를 시작한다.

55:4.27 (629.5) 3. 행성 아담과 이브는 잠깐 동안 머물기 위해 아(亞)중간 세계로 직접 가기로 선택할 수 있는데—체계 본부로부터 물질아들들과 딸들이 하듯이—거기에서 그들의 조절자들을 받아들인다.

55:4.28 (629.6) 4. 그들은 체계 본부로 돌아가기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한동안 최고 법정에서 자리를 차지하며, 봉사 후에 그들은 조절자들을 받아들일 것이고 파라다이스 상승을 시작한다.

55:4.29 (629.7) 5. 그들은 한동안 선생들로서 봉사하기 위해 그들의 행정 임무들로부터 그들의 고향 세계로 되돌아가고 우주 본부로 옮겨질 때 조절자가 내주하게 되기로 선택할 수 있다.

55:4.30 (629.8) 이 신(新)시대들에 두루, 수입된 보조하는 물질아들들과 딸들은 진보하는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계층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 그들은 적어도 그들이 인간화되고 조절자들을 받아들이며 파라다이스를 향해 출발하기로 선택하는 그 시점까지는 잠재적으로 불멸이다.

55:4.31 (629.9) 진화 세계들의 경우, 존재는 생각 조절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반드시 인간화되어야만 한다. 최종자의 필사자 무리단의 모든 상승자 성원들은 조절자가 내주되고 융합한 것이다, 세라핌천사는 제외되며, 그들은 이 무리단 안으로 소집될 때, 다른 형태의 영에 의해 아버지가 내주된다.

제 5 장. 물질적 발달의 절정

55:5.1 (629.10) 유란시아와 같이, 죄에-휩쓸리고 악에-지배당하고 자아를-추구하고 있고, 고립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필사 창조체들은 죄 없는 구체의 진보된 이 진화 신(新)시대들의 특징인 물리적 완전과 지적 달성 그리고 영적 발전을 거의 이해할 수 없다.

55:5.2 (629.11)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된 세계의 진보된 단계들은 진화적인 물질적 발달의 절정을 나타낸다. 교화된 이 세계들에서는, 비교적 초기의 원시적 시대들의 게으름과 충돌이 이미 사라졌다. 가난과 사회적 불평등이 모두 사라졌고, 퇴화가 없어졌으며, 범죄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정신병이 실천적으로 사라졌고, 정신박약은 아주 드물다.

55:5.3 (629.12) 이 세계들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행정-관리적 지위는 높고 완전하게 된 계층에 속한다. 과학과 예술 그리고 산업이 번창하고, 사회는 높은 물질적, 지적, 그리고 문화적 성취의 부드럽게 작동하는 일종의 기능구조이다. 산업은 그러한 뛰어난 문명의 보다 높은 목표들을 돕는 쪽으로 크게 전환되었다. 그러한 세계의 경제생활은 윤리적인 상태가 되었다.

55:5.4 (630.1) 전쟁은 역사에서의 문제가 되었으며, 더 이상 군대나 경찰이 없다. 정부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자아-통제가 인간적 규제 법규를 서서히 쓸모없게 만들고 있다. 시민 정부와 법정 규칙의 범위는, 진보하는 문명의

중간 상태에서는, 시민관계의 도덕성 그리고 영성에 반비례한다.

55:5.5 (630.2) 학교들이 크게 개선되고 마음 훈련과 혼의 확대에 기여한다. 예술 중심들은 멋지고 음악적 조직체들은 뛰어나다. 경배를 드리는 성전들은 그것들과 연관된 철학 그리고 체험적 종교 학교들과 함께 아름다움과 장엄함의 창조계이다. 경배의 야외 경기장들은 그것들의 예술적 설비의 단순성 속에서 똑같이 장엄하다.

55:5.6 (630.3) 경쟁적인 연극, 유머, 그리고 다른 국면의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 성취를 위한 설비들은 넓고도 특유하다. 높게 문화화 된 그러한 세계에서 경쟁적인 활동들의 특별한 특색은 우주론의 과학들과 철학들에서 탁월하기 위해 개별존재들 그리고 집단들의 노력에 관여한다. 문학과 웅변술 그리고 언어는 개념들에 대한 상징일 뿐만 아니라 개념들에 대한 표현이 될 정도로 많이 개선된다. 삶은 상쾌하게 단순하다; 사람은 마침내 기계적 발달의 높은 상태와 영감을 주는 지적 달성을 조화-협동시키며, 그리고는 이들 둘 모두를 절묘한 영적 성취가 그늘이 되도록 만든다. 행복의 추구는 기쁨과 만족의 체험이다.

제 6 장. 개별 필사자

55:6.1 (630.4) 세계들이 빛과 생명의 정착된 지위 속에서 진보할 때, 사회는 점점 더 평화롭게 된다. 독립하고 자기 가정에게 헌신하는 만큼, 개별존재는 더욱 이타적이고 형제우애를 갖게 된다.

55:6.2 (630.5) 유란시아의 경우, 그리고 너희 있는 그대로에서는, 너희는 이들 완전 세계에서의 깨우친 종족들의 발전된 지위와 진보하는 본성에 대해 거의 이해할 수 없다. 이들 민족들은 진화적 종족들이 꽃핀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존재들은 여전히 필사자이다; 계속 숨 쉬고 먹고 자며 마신다. 이 위대한 진화가 천국은 아니지만, 파라다이스 상승의 신성한 세계들에 대한 장엄한 전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55:6.3 (630.6) 정상적인 세계에서는, 필사 종족의 생물학적 건강은 아담의-이후 신(新)시대들 동안에, 높은 차원에 이른지 오래 된다; 이제는 여러 시대의 정착된 시기를 지나며 두루, 사람의 육신적 진화가 계속된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모두 확장된다. 이제는 인구가 고정된 숫자로 안정되게 된다. 출산은 행성 요구와 타고난 유전 자질에

따라 규제 된다: 이 시기 동안 행성에 있는 필사자들은 다섯 개 내지 열 개의 집단으로 분류되며, 비교적 낮은 집단들은 비교적 높은 집단 보다 절반 정도의 자녀들만을 두도록 허용된다. 빛과 생명의 시대에 두루 그러한 훌륭한 종족의 계속적인 개선은 주로 사회적, 철학적, 우주적, 그리고 영적 본성의 우월한 본질특성을 드러내 보이는 인종 혈통들의 선택적인 번식의 문제이다.

55:6.4 (630.7) 조절자들은 이전 진화 시대들과 마찬가지로 계속 오며, 신(新)시대들이 지남에 따라 이 필사자들은 내주하는 아버지 단편과 점점 더 교제를 나눌 수 있다. 태아기 그리고 영-이전(以前) 상태의 발달이 있는 동안 보조 마음-영들이 여전히 활동한다. 성령과 천사들의 사명활동은 정착된 생명의 계속되는 신(新)시대들이 체험됨에 따라 더욱 효력을 나타낸다. 빛과 생명의 네 번째 단계에 있어서 진보된 필사자들은 초우주가 관할하는 주(主) 영의 영현존과의 상당히 큰 의식적 접촉을 체험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그러한 어떤 세계의 철학은 최극위 하느님의 새로운 계시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한다. 이 진보된 지위의 행성들에 거주하는 인간들 중 반 이상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모론시아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체험한다. 과연 그러하니, “옛 것들은 지나가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다.”

55:6.5 (631.1) 우리는 빛-과-생명 시대의 다섯 번째 신(新)시대가 끝날 무렵에 물리적 진화가 충만한 발달을 달성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진화하는 인간 마음과 연관된 영적 발달의 상위 한계들이 모론시아 가치들과 조화우주 의미들이 공동을 이루는 조절자-융합 차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목격한다. 그러나 지혜에 관하여는: 우리가 실제로 알지 못하는 반면, 지적 진화와 지혜의 달성에 한계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추측한다. 일곱 번째 단계 세계의 경우, 지혜는 물질적 잠재를 다 나타낼 수 있고, 모타 통찰력으로 들어가며, 결국에는 아(亞)절대적 장관을 맛본다.

55:6.6 (631.2) 우리는 높게 진화되고 긴 일곱 번째 단계 세계들에서 인간 존재들이 전환되기 전에 지역우주 언어를 완전히 배우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아반돈터들이 오래된 필사자들에게 초우주의 방언을 가르치고 있는 소수의 매우 오래된 행성들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 세계들에서 나는 아(亞)절대 개인성들이 모론시아

성전에서 최종자의 현존을 계시하는 기법을 관찰한바 있다.

55:6.7 (631.3) 이것은 진화 세계들에서 일어나는 필사자 분투의 장엄한 목표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것은 모두 인간 존재들이 그들의 모론시아 생애에 들어가기 전에 관한 것이다; 화려한 이 발전 전체는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 파라다이스 상승과 신성 달성의 끝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생애의 바로 첫 단계에 물질적 필사자들에 의해 성취된다.

55:6.8 (631.4) 그러나 너희가 정착된 빛과 생명의 일곱 번째 신(新)시대에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는 세계들로부터 지금 어떤 종류의 진화적 필사자들이 올라오고 있는가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들은 자신들의 상승 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지역우주 본부에서의 모론시아 세계들에게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과 같다.

55:6.9 (631.5) 만약에 혼란된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이 오랫동안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한 보다 더 진보된 이 세계들 중 하나를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은 두 번 다시 창조의 진화 계획의 지혜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창조체 진보의 미래가 없더라도, 완전하게 된 성취의 그러한

정착된 세계에 있는 필사 종족들의 장엄한 진화적
달성들은 여전히 시간과 공간의 세계들에서 있는 사람의
창조를 충분히 정당화시킬 것이다.

55:6.10 (631.6)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에 대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하게 된다면, 상승하는 아름다운
필사자들이 여전히 최종의 무리단으로 들어가게 될까?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한다.

제 7 장. 첫 번째, 즉 행성 단계

55:7.1 (631.7) 이 신(新)시대는 새로운 행성 본부에 모론시아
성전이 나타나는 때로부터 전체 체계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하는 때까지 계속된다. 이 시대는 구체의 파라다이스
증여 아들의 명령과 개인적 현존에 의해, 행성영주가
행성주권자의 지위로 고양되는, 그들의 계속되는 세계
임무들이 종료되는 때에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에 의해
시작된다. 그와 동시에 최종자는 행성 관련사들에 대한
그들의 활동적 참여를 시작한다.

55:7.2 (632.1) 외부적으로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는,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된 그러한 어떤 세계의 실재적 통치자들 또는
감독자들은 물질아들 과 딸, 행성 아담과 이브이다.

최종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모론시아 성전에서의 경우를 제외하면 영주-주권자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므로 행성 체제의 실재적이고 엄밀한 의미의 우두머리는 물질아들과 딸이다. 우주 영역에 두루 왕들과 왕비들의 개념이 위신을 얻게된 것은 이러한 배열에 대한 지식 때문이었다. 그리고 왕들과 왕비들은 한 세계가 어떤 높은 개인성들에게 더 높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을 대신하여 활동하도록 명령할 수 있을 때, 이들 이상적인 환경 아래에서는 하나의 위대한 성공이다.

55:7.3 (632.2) 그러한 시대가 너희 세계에서 달성되면, 현재 유란시아의 대리 행성영주인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행성주권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놀라시아덱의 지고자의 피보호자로서 현재 에덴시아에 머물고 있는 유란시아 아담과 이브의 한 아들과 딸이 그와 동반하리라는 것이 예루셈에서 오랫동안 추측되어 왔다. 아담의 이 자녀들은 거의 37,000년 전에 그들이 에덴시아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서 유란시아에서의 자신들의 물질적 몸체를 포기하였을 당시 출산하는 힘을 박탈 당하였기 때문에, 멜기세덱-주권자와 관계적-연합하여 유란시아에서 그런 어떤 봉사를 할지도 모른다.

55:7.4 (632.3) 정착된 이 시기는 체계 안에 있는 각각의 거주 행성이 안정의 시대를 성취할 때까지 이어지고 또 이어진다; 그리고 나서, 가장 어린 세계—마지막으로 빛과 생명을 성취한 세계—가 체계 시간으로 1,000년 동안 그러한 정착됨을 체험하였을 때, 전체 체계는 안정된 지위로 들어가며, 개별 세계들은 빛과 생명의 시대의 체계 신(新)기원으로 정중하게 진입된다.

제 8 장. 두 번째, 즉 체계 단계

55:8.1 (632.4) 전체 체계가 생명 속에 정착하게 될 때, 새로운 계층의 정부가 출범된다. 행성주권자들은 체계 비밀회의의 회원이 되며, 별자리 아버지들의 거부권에 복종하는 이 새로운 행정-관리적 기구가 최극의 권한을 갖는다.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로 구성된 그러한 체계는 실질적으로 자아-관리하는 곳이 된다. 체계 입법 회의는 본부 세계에 설립되며, 각 행성은 그곳으로 열 명의 대표자들을 보낸다. 법정들이 현재 체계 본부에 설립되어 있으며, 오직 항소들만이 우주 본부에 받아들여진다.

55:8.2 (632.5) 체계의 정착에 따라, 초우주 최극 집행자의 대표자인 배정된 파수자는 체계 대법정에 자원하는 충고자가 되고 새로운 입법 회의의 실재적인 의장이 된다.

55:8.3 (632.6) 전체 체계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한 후에는, 체계 주권자들이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주권자는 자기 체계의 우두머리로서 영구적으로 남아 있다. 체제 보좌관들이 이전 시대들에서와 같이 계속 변한다.

55:8.4 (632.7) 안정의 이 신(新)시대 동안, 처음으로 아(亞)중간자들이 입법 회의들에 대해 조언자로서 그리고 판결 법정에 대해 충고자로서 활동하기 위해, 그들이 머무는 우주 본부 세계들로부터 온다. 또한 이들 아(亞)중간자들은 그들이 최종자와 공동으로 후원하는 가르치는 사업에, 최극 가치의 새로운 모타 의미들을 붙여넣으려는 특정한 노력을 기울인다. 물질아들이 필사 종족들을 위해 생물학적으로 행하였던 것을, 아(亞)중간 창조체들은 계속-발전하는 철학 그리고 영성화된 사고(思考)의 영역 안에서, 통합되고 영화롭게 된 이들 인간을 위해 이제 행한다.

55:8.5 (633.1) 거주되는 세계들의 경우 교사 아들들은 최종자와 함께 자발적으로 협동하는 자들이 되며, 또한 동일한 이 교사 아들들은 전체 체계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한 후에 구체들이 구별이 되는 접수 세계들로서 더 이상 활용되지 않을 때, 맨션세계까지 최종자와 동행 한다; 전체 별자리가 그렇게 진화하는 때가 되어서는 적어도 이것이 참말이다. 그러나 네바돈 안에서 그렇게 멀리 진보한 집단들이 없다.

55:8.6 (633.2) 우리는 다시 전념된 그러한 맨션세계들을 감독하게 될 최종자의 활동의 본질을 계시하도록 허락 받지 않았다. 아무튼 너희에게는 이 이야기에서 설명되지 않은, 우주들에 두루 다양한 형태의 지능 창조체들이 있다는 것을 들어온 바 있다.

55:8.7 (633.3) 그리고 이제, 체계들이 그들을 구성하는 세계들의 진보의 덕분으로 빛 속에 하나씩 정착하게 될 때, 주어진 별자리 안에서 마지막 체계가 안정을 달성하는 시간이 도래하며, 우주 행정-관리자들—주(主) 아들, 연합으로 늘 계신이, 그리고 빛나는 새벽별—이, 지고자들을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정착된 100개 체계로서의 새롭게 완전해진

가족의 분별불가적 통치자들로 선포하기 위하여 별자리의 본부에 도착한다.

제 9 장. 세 번째, 즉 별자리 단계

55:9.1 (633.4) 정착된 체계들로 이루어진 전체 별자리의 통일은 집행적 권한의 새로운 배분과 우주 관리-행정의 추가적 재(再)조절들에 의해 성취된다. 이 신(新)시대에 거주민이 사는 각 세계에서 증진된 달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지만 특별한 특징은 별자리 본부에서 재(再)조절이 일어나는 것인데, 체계 감독과 지역우주 정부 둘 모두와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변경된다. 이 시기 동안 많은 별자리 그리고 우주 활동들이 체계 본부로 전달되며, 초우주의 대표자들은 행성 통치자들과 체계 통치자들 그리고 우주 통치자들과의 새롭고도 더욱 긴밀한 관계들을 갖게 된다. 이 새로운 관계적-연합들과 동시에, 어떤 초우주 관리-행정자들은 지고자 아버지들에 대해 자발적 충고자들로써 별자리 본부에 자리를 잡는다.

55:9.2 (633.5) 별자리가 그렇게 빛 속에 정착할 때, 입법 기능이 멈추고, 지고자들에 의해 주관되는 체계 주권자들의 의회가 대신 활동한다. 이제 그러한 관리-행정적 집단들은

하보나 그리고 파라다이스 관계들에 대한 문제들에 있어서 처음으로 초우주 정부와 직접적으로 처리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자리가 그 전과 같이 지역우주와의 관계에 머문다. 생명 속에 정착된 각 단계들에서 유니비타시아가 별자리 모론시아 세계들을 계속 관리-운영한다.

55:9.3 (633.6) 시대들이 지나감에 따라, 별자리 아버지들이 세부 행정-관리적 또는 그 전에 우주 본부에 중심을 두었던 감독기능들을 점점 더 많이 맡게 된다. 안정의 여섯 번째 단계를 달성하게 되면, 통합된 이 별자리들은 거의 완벽한 자치권의 지위를 갖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정착하는 일곱 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지고자, 그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참된 존엄성으로 이들 통치자들에 의하여 고양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모든 의향과 목적들에 대하여 별자리들은 그때 초우주 통치자들과 직접 관계하는 반면, 지역우주 정부는 새로운 대우주 의무의 책임들을 더 광범위하게 파악하게 될 것이다.

제 10 장. 네 번째, 즉 지역우주 단계

55:10.1 (634.1) 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하게 될 때, 그것은 확립된 초우주 순환회로들 속으로 곧 회전해 들어가며,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무제한적 권한을 가진 최고협의회가 설립되었음을 선포한다. 새로운 이 통치 기구는 100명의 총심으로 늘 계신이로 구성되고, 연합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통치되며, 이 최고협회의 첫 번째 활동은 주 창조자 아들의 계속적인 주권(主權)을 인정하는 것이다.

55:10.2 (634.2) 우주 관리-행정은, 가브리엘과 아버지 멜기세덱을 고려하는 한, 전혀 변하지 않는다. 무제한적 권한을 갖는 이 협의회는 빛과 생명의 진보된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과 새로운 조건들에 주로 관여한다.

55:10.3 (634.3) 이때 연관-동료 검열자가 지역우주의 안정 무리단을 설립하기 위해 모든 배정된 파수자들을 동원하며 아버지 멜기세덱에게 그것에 대한 감독을 자신과 함께 하도록 요청한다. 그리고 이 때, 처음으로,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의 무리단이 연합으로 늘 계신이의 봉사에 배정된다.

55:10.4 (634.4) 전체 지역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하는 일은, 거주민이 사는 개별 세계들로부터 우주 본부에 이르기까지, 전체 관리-행정 조직 안에 심원한 재(再)조절들을 일으킨다. 새로운 관계들이 별자리들과 체계들을 향하여 아래로 확장된다. 지역우주 어머니 영은 초우주의 주(主) 영과 새로운 연락 관계들을 체험하며, 가브리엘은 주(主) 아들이 본부 세계에서 부재(不在)하게 될 경우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 직접적인 접촉을 수립한다.

55:10.5 (634.5) 이 시대와 이어지는 시대들 동안 치안법관 아들들이 섭리시대 심판관들로서 계속 활동하는 반면, 파라다이스의 이들 아보날 아들 중 100명은 빛나는 새벽별의 새로운 고급 협의회를 우주 수도에서 구성한다. 나중에, 그리고 체계 주권자들로부터 요청될 때, 이 치안법관 아들들 중 하나가 각 지역체계의 본부 세계에 일곱 번째 합일 단계가 달성될 때까지 머무는 최극 조연자가 될 것이다.

55:10.6 (634.6) 이 신(新)시대 동안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행성주권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비슷하게 별자리

아버지들을 돕는 세 집단에 있어서도, 자발적 충고자들이 된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들들은 지역우주 안에서 자기 위치를 찾는데, 왜냐하면 이 때 그들이 지역 창조에 대한 관할권으로부터 제외되고 무제한적 권한을 갖는 최고협회의의 봉사에 배정되기 때문이다.

55:10.7 (634.7) 최종자 무리단은 이제 처음으로 추가-파라다이스 권한의 관할권, 최고협회를 시인한다. 이전까지는 최종자가 파라다이스의 이 방면에 대한 감독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55:10.8 (634.8) 정착된 그러한 우주들의 창조자 아들들은 파라다이스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세계들에서 그리고 지역 창조에 두루 봉사하는 수많은 최종자 집단과 조언하는 일에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이 방법으로 미가엘의 사람은 영화롭게 된 최종자 필사자들과 관계적-연합하는 더욱 충만한 형제우애관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55:10.9 (634.9) 현재 예비적 조립의 과정에 있는 외계 우주와 관련된 이 창조자 아들들의 기능에 관하여 추측하는 것은 전혀 쓸 데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때때로 그러한

가정을 세워보곤 한다. 이 네 번째 발달 단계에 도달하면서 창조자 아들은 행정-관리적으로 자유롭게 된다; 신성한 사명활동자가 초우주 주(主) 영과 무한한 영의 사명활동과 자신의 것을 점진적으로 혼합시킨다. 창조자 아들, 창조 영, 저녁별들, 교사 아들들, 그리고 계속-증가하는 최종자 무리 사이의 새롭고도 장엄한 관계가 진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55:10.10 (635.1) 만약에 미가엘이 네바돈을 계속 떠나야만 한다면, 가브리엘이 자신의 연관-동료로서 아버지 멜기세덱과 함께 우두머리 관리-행정자가 될 것이 틀림없다. 동시에 새로운 지위가 모든 계층의 영구 시민신분들에게 심어질 것인데, 물질아들들, 유니비타시아, 아(亞)중간자, 수사시아, 그리고 영-융합 필사자들이 그러하다. 그러나 진화가 계속되는 한, 세라핌천사들과 천사장들은 우주 관리-행정에 필요하게 될 것이다

55:10.11 (635.2) 아무튼 우리는 우리가 추측하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 만족하는데: 만약에 창조자 아들들이 외계 우주들에게로 갈 운명이라면, 분명히 신성한 사명활동자들이 그들과 동행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들이

지원된 우주에 멜기세덱들이 남아 있을 것에 대해 똑같이 확신한다. 우리는 멜기세덱들이 지역우주 정부 그리고 관리-행정에 있어서 계속-증가하는 책임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제 11 장. 소구역 그리고 대구역 단계들

55:11.1 (635.3) 초우주의 소구역 그리고 대구역들은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된 존재에 관한 계획 속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한 진화적 진보는 한 단위로서 지역우주에 우선적으로 속하며한 지역우주의 요소들과만 관계한다. 초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하는 것은 그 구성원 지역우주들 전체가 그렇게 완전하게 되었을 때이다. 그러나 일곱 초우주들 중 어느 하나도 이것에 근접하는 진보의 차원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55:11.2 (635.4) 소구역 시대. 관측이 가능한 한, 안정의 다섯 번째 또는 소구역 단계는 물리적 지위와 전적으로 관계하며 그리고 초우주의 확립된 순환회로들 속에서 연관된 100개 지역우주들의 조화-협동 정착에만 전적으로 관계한다. 겉으로 보기에 오직 힘 중심지들만이 그리고 그것들의 동료들만이 물질적 창조의 이 재(再)정돈에 관계한다.

55:11.3 (635.5) 대구역 시대. 여섯 번째 단계, 또는 대구역 안정에 관하여, 우리는 오직 추측할 수 있을 뿐인데, 우리들 중 누구도 그러한 사건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과 그것들의 우주 집단화의 그러한 진보된 지위에 동반될 가능성이 있는 행정-관리적 그리고 다른 재(再)조절들에 관한 많은 것이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55:11.4 (635.6) 소구역 지위가 물리적 조화-협동 평형과 관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구역 통일이 어떤 새로운 지적 달성 차원들, 아마도 조화우주 지혜의 최극 실현에 있어서 진보된 어떤 성취들과 관련될 것이라고 추측한다.

55:11.5 (635.7) 우리는 개별적인 세계들에서 그리고 비교적 오래되고 높게 발달된 구체들에서 사는 개별 필사자들의 체험들에 있어서 그러한 성취 결과들을 바라봄으로써 진화적 진보의 지금까지 달성되지 않은 차원들에 대한 실현을 성취하게 될 재(再)조절들에 관하여 결론에 도달한다.

55:11.6 (635.8) 분명하게 할 것은, 우주 또는 초우주의 행정-관리적 기능구조와 정부 기능구조들은 거주민이 사는

개별 행성이나 그러한 어떤 구체에 있는 모든 개별 필사자의 진화적 발달 또는 영적 진보를 전혀 제한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55:11.7 (635.9) 비교적 오래된 어떤 우주들에서 우리는 아직 지역체계들이 빛 속에 정착하지 않은, 그러한 빛과 생명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단계 안에—심지어 일곱 번째 신(新)시대 안으로 멀리 확장되기까지—정착된 세계들을 발견하였다. 비교적 젊은 행성들은 체계 통일을 지연시킬 수도 있지만, 이것은 보다 오래되고 진보한 세계의 진보를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고립된 세계에서조차도 환경적 한계들이 개별 필사자의 개인적 달성을 휘방할 수 없다; 나사렛 예수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유란시아에서 1,900년 전에 빛과 생명의 지위를 개인적으로 성취하였다.

55:11.8 (636.1) 일곱 초우주가 안정되는 사건을 우리가 안전하게 가정할 수는 없더라도, 하나의 초우주 전체가 빛 속에 정착할 때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상당히 믿을만한 결론에 도달한 것은 오랜 세월 정착된 세계들에서 발생하는 것을 관측하였기 때문이다.

제 12 장. 일곱 번째, 즉 초우주 단계

55:12.1 (636.2) 우리는 초우주가 빛 속에 정착하게 될 때 무엇이 발생할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사건이 사실화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모순된 적이 전혀 없는, 멜기세덱들의 가르침을 토대로 하여, 우리는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로부터 초우주 본부에 이르기까지 확장하는 시간과 공간의 창조계의 모든 단위에 대한 전체 조직과 관리-행정 속에서 포괄적인 변화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추측한다.

55:12.2 (636.3) 다르게 배정되지 않은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 중 많은 숫자들이 정착된 초우주들의 본부 그리고 구획 수도들에서 모이게 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믿는다. 이것은 외계-공간자가 하보나와 파라다이스를 향하는 그들의 길에 언젠가 도달하는 것을 예상하게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알지 못한다.

55:12.3 (636.4) 만약에 그리고 초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하게 될 때, 우리는 현재 조연적인 최극의 분별불가 감독자들이 초우주들의 본부 세계에서 높은 행정-관리적 주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들은 아(亞)절대 행정-관리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개인성들인데, 그들은 정착된 우주들에서 즉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들 분별불가 감독자가 창조의 발전된 진화하는 단위체에서 충고자와 조언자들로써 오랫동안 기능해 왔더라도, 그들은 최극존재의 권한이 주권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 행정-관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55:12.4 (636.5) 이 신(新)시대 동안 더욱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최극자의 분별불가 감독자들은 유한, 아(亞)절대, 궁극, 또는 무한이 아니다; 그들이 최극위(最極位)이며 오직 최극자 하느님을 대표할 뿐이다. 그들은 시간-공간 최극위의 개인성구현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보나에서 기능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최극 통합자들로써 활동한다. 그들은 아마 우주 반영성의 기법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55:12.5 (636.6) 대우주(하보나에 의존하는 일곱 초우주들)가 빛과 생명 속에 전반적으로 정착될 때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한 만족스러운 개념을 우리들 중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그 사건은 중앙우주가 출현한 이래 영원의 연대기(年代記) 속에서 가장 의미심장하게 발생될 것이 틀림없다.

최극존재 자신이 자신의 영 개인을 덮으면서 하보나 신비로부터 창발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갖는 완전하게 된 창조의 전능하고도 체험적인 주권자로서 일곱 번째 초우주의 본부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알지 못한다.

55:12.6 (636.7) [유란시아에 있는 천사장 협의회에 일시적으로 배정된 막강한 메신저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56 편 우주 합일

56:0.1 (637.1) 하느님은 합일체이다. 신(神)은 우주적으로 조화-협동되어 있다. 우주들의 우주는 하나의 무한 마음에 의해 절대적으로 통제되는 하나의 거대한 집대성된 기능구조이다. 우주적 창조의 물질적, 지적, 그리고 영적 권역들은 신성하게 상관관계 되어 있다. 완전한 존재들과 불완전한 존재들은 진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에 따라 유한한 진화적 창조체는 우주 아버지의: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 하라.”는 명령에 복종하여 파라다이스로 상승할 수도 있다.

창조체의 다양한 차원들은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의 계획과 관리-행정 속에서 모두 통합되어 있다. 시간-공간 필사자들의 제한된 마음에게는 우주가 겉으로 보기에 조화-협동을 이루지 않는 많은 문제들과 상황들을 나타내고 효력적인 조화-협동이 없는 것처럼 나타나겠지만; 보다 넓게 퍼져나가는 우주적 현상들을 목격할 수 있는, 그리고 대다수의 이 활동 전체에 퍼져 있는 신성한 하나 됨을 발견하는 그리고 창조적 다양성의 밑바닥에 있는 기본적 합일성을 감지하는 이 기술을 더욱 체험하는 우리들은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에 대한 이 다중 현시활동들 전체 속에 나타난 신성하고도 유일한 목적을 더 잘 인식한다.

제 1 장. 물리적 조화-협동

물리적 또는 물질적 창조는 무한하지 않지만, 그것은 완전하게 조화-협동을 이룬다. 거기에는 기세와 에너지 그리고 힘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기원에서 모두 하나이다. 일곱 개의 초우주들은 겉으로 보기에 이원적(二元的)이다; 중앙우주는 삼원일체(三元一體)적이다; 그러나 파라다이스는 단일 구조이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모든 물질우주들—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실재적인 근원이다. 그러나 이 조화우주의 유래는 영원 사건이다; 공간이나 물질적 우주는 핵심적인 빛의 섬으로부터 나온 때—과거, 현재, 또는 미래에—가 결코 없다. 조화우주 근원으로서 파라다이스는 공간에 앞서 그리고 시간 이전에 기능 한다; 그러므로 그것의 유래들이 시간과 공간에서 고아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것들은 공간에서의 그들의 궁극적 저장소 그리고 시간에서의 그들의 계시자 그리고 규제자인 분별불가 절대자를 통해 창발하지 않았다.

^{56:1.2 (637.4)} 분별불가 절대자가 물질적 우주를 유지하는 반면, 신(神) 절대자는 모든 물질적 실체에 대한 지극히 아름다운 전반적-통제를 발동시키며; 두 절대자들은 우주 절대자에 의해 기능적으로 통합된다. 물질적 우주의 이 밀접한 상관관계성은 파라다이스 아래에 중심을 두는 중력에 대한 모든 진실한 물질적 실체의 중력 반응을 목격함으로써 모든 개인성들—물질적, 모론시아, 아(亞)절대, 또는 영적—에게 가장 잘 납득된다.

^{56:1.3 (638.1)} 중력 통일은 우주적이고 불변적이다; 순수-에너지 반응도 마찬가지로 우주적이고 불가항력적이다. 순수

에너지(원초기세)와 순수 영은 중력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절대자들 속에 부여된 이 원초기세들은 우주 아버지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제된다; 그래서 모든 중력은 순수 에너지 그리고 순수 영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직접적 현존 속에 그리고 그의 초(超)물질적 거주지 속에 중심을 둔다.

56:1.4 (638.2) 순수 에너지가 모든 상대적인, 비(非) 영 기능적 실체들의 조상인 반면, 순수 영은 모든 기본 에너지 체계들에 대한 신성한 그리고 지배적인 전반적-통제의 잠재다. 그리고 공간에 두루 현시된 것처럼 그리고 시간 동작에서 관찰된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이 실체들은 둘 모두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개인 속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것들은 그 분 안에서 하나—반드시 통합되어 있어야 함—인데 하느님이 한 분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개인성은 절대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56:1.5 (638.3) 아버지하느님의 무한 본성 안에서는, 물질적이면서 영적인 것과 같은, 그러한 실체의 이원성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개인적 가치들에 대한 무한한 차원들과 절대적 실체로부터

우리가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이들 두 실체들의 실존을 관찰하며, 이들이 그의 개인적 현존에 대해 충만하게 반응하는 것을 인지한다; 그 분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

56:1.6 (638.4) 너희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무한한 개인성의 분별불가한 개념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너희는 마음을, 이들 이원적(二元的) 우주적 현시활동의 언제까지나-확장되는 다양성을 통합하는 필연적 기법으로서, 기원적 유일신 창조자 개인성, 첫째근원이며 중심—스스로 이신 이—를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2 장. 지적 합일

56:2.1 (638.5) 생각-아버지는 영 표현을 말씀-아들 안에서 실현하며, 멀리 퍼져 나가는 물질적 우주들 안에서 파라다이스를 통해 실체 확대를 달성한다. 영원한 아들의 영적 표현들은 무한한 영의 활동에 의해, 그의 마음에서의 영-반응 사명활동에 의해 창조의 물질적 차원들과 상관관계되며, 마음에서의 그의 물리-지향적 활동들에 의해, 신(神)의 영적 실체들 그리고 신(神)의 물질적 반향들이 상관관계된다.

56:2.2 (638.6) 마음은 무한한 영의 기능적 자질이며, 그러므로 잠재에서 무한하고 증여에서 우주적이다. 우주 아버지의 시원적 생각은 이원적(二元的) 표현으로 영원화 된다; 바로 파라다이스 섬과 그리고 그의 신(神)이 동등하게 영적인 것, 곧 영원한 아들로 영원화 된다. 영원한 실체의 그러한 이원성(二元性)은 마음 하느님, 무한한 영을 필연적으로 만든다. 마음은 영적 실체와 물질적 실체 사이의 통신에서의 필요불가결한 통로이다. 물질적 진화 창조체는 마음의 사명활동에 의해서만 내주하는 영을 착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56:2.3 (638.7) 무한하고 우주적인 이 마음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 속에서 조화우주 마음으로 베풀어진다; 그리고 보조 영들의 원시적 사명활동에서부터 우주의 우두머리 집행자의 장엄한 마음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지만, 그래도 이 조화우주 마음은 시간과 공간의 최극 마음과 차례로 조화-협동된, 그리고 무한한 영의 모든 것을-포용하는 마음과 완전하게 상관관계된, 일곱 주(主) 영들의 감독 안에서 알맞게 통합된다.

제 3 장. 영적 통일

56:3.1 (639.1) 우주 마음 중력이 무한한 영의 파라다이스 개인적 현존 속에 중심을 두듯이, 우주 영 중력은 영원한 아들의 파라다이스 개인적 현존에 중심을 둔다. 우주 아버지는 한 분이지만, 시간-공간에 대하여 그는 순수 에너지와 순수 영의 이원적(二元的) 현상으로 계시된다.

56:3.2 (639.2) 파라다이스 영 실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이지만, 모든 시간-공간 상황들과 관계들에 있어서 이 단일 영은 영원한 아들과 영 개인성들의 발산 그리고 무한한 영과 연관-동료 창조체들의 감화력이라는 이원적(二元的) 현상으로 계시된다; 또 다른 제3의—순수-영 단편(斷片)들—생각 조절자들이라는 아버지의 증여와 전(前)개인적 상태에 있는 다른 영 실존개체들이 있다.

56:3.3 (639.3) 너희가 우주 활동들의 어떤 차원(次元)에서 영적 현상들을 만나거나 영 존재들과 접촉하더라도, 너희는 그들 모두가 영 아들과 무한 마음 영의 사명활동으로 영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유래되었음을 알 것이다. 그리고 멀리-퍼지는 이 영은 그것이 지역우주들의 본부로부터 지도를 받는 것에 따라 그렇게 시간의 진화 세계들에서의 현상으로 기능한다. 성령과 진리의 영은 창조자 아들들의

이 본부들로부터 보조 마음-영들의 사명활동과 함께 물질적 마음들의 더 낮고 진화하는 차원들에게로 온다.

56:3.4 (639.4) 마음이 최극존재와 관계적-연합하여 그리고 절대 마음에 종속하는 조화우주 마음으로서 주(主) 영들의 차원에서 더욱 통합되는 반면, 진화하는 세계들에 대한 영 사명활동은 지역우주들의 본부에 거주하는 개인성들 안에서, 그리고 지배하는 신성한 사명활동자들의 개인들 안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통합되며, 이들 신성한 사명활동자들은 모든 시간-공간 영 현시활동들의 최종적 통일이 거기서 발생하는, 영원한 아들의 파라다이스 중력 순환회로와 거의 완전하게 상관관계되어 있다.

56:3.5 (639.5) 완전하게 된 창조체 실존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개인들 중 어느 하나의 삼위일체-이전(以前) 영 자질의 단편(斷片)과 자아-의식 마음이 융합함으로써 달성되고 유지되며 영구화될 수 있다. 필사자 마음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아들들과 딸들의 창조이며, 아버지로부터 오는 생각 조절자와 결합할 때 진화 세계들의 삼중적 영 자질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들 세 영 표현들은 최종자 속에서 완전하게 통합되는데, 그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우주 아버지가 되기 이전에 우주적 스스로 이신 이 안에서 통합되어 그들이 영원히 존재하였던 것과 같다.

56:3.6 (639.6) 영은 항상 그리고 궁극적으로 표현에 있어서 삼중적으로 되어야만 하며 최종적 실현에 있어서 삼위일체-통합이어야 한다. 영은 삼중적 표현에 두루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기원된다; 최종 안에서, 그것은 영원 속에서 하느님—신성과 하나됨—을 발견함에 있어서 그리고 아버지의 우주적 사고의 영원한 말씀에 대한 무한한 표현의 조화우주 마음의 사명활동이라는 수단에 의해 체험되는 그 신성한 통일 속에서 충만한 실현을 이루어야만 하고 또 그렇게 한다.

제 4 장. 개인성 통일

56:4.1 (639.7) 우주 아버지는 신성하게 통합된 개인성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물질적 필사자 속에 내주하기 위하여 파라다이스로부터 나아왔던 생각 조절자들의 반동 추진력에 의해 파라다이스로 옮겨지는 그의 모든 상승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보나에 도착하기 전에 충분히 통합된 개인성들이 될 것이다.

56:4.2 (640.1) 개인성은 선천적으로 모든 요소 실체들을 통합하는 지점에 이르게 되어 있다. 첫째근원이며 중심, 우주 아버지의 무한 개인성은 일곱 요소의 모든 무한성의 절대자들을 통합 한다; 우주 아버지의 독점적이고도 직접적인 증여를 받는, 필사자 사람의 개인성도 필사 창조체의 구성 요소 성분들을 통합하는 잠재를 소유한다. 모든 창조체 개인성의 그러한 통합하는 창조성은 그것의 높고도 독점적인 근원의 출생반점이고 개인성 순환회로에 두루 동일한 이 근원과 계속적인 접촉을 이루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되는데, 파라다이스에 있는 모든 개인성의 아버지와 직접적이고도 계속적인 접촉을 창조체의 개인성이 유지하는 수단에 의해서이다.

56:4.3 (640.2) 하느님이 칠중의 권역들로부터 최극위와 궁극위를 거쳐 절대자 하느님에 이르기까지 현시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느님의 개인 속에 그리고 파라다이스에 중심을 두는 개인성 순환회로는 지능체 실존의 모든 차원들에 있어서 그리고 완전한, 완전하게 된, 그리고 완전하게 되고 있는 우주들의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모든 창조체 개인성들을 고려하는 한 신성한

개인성의 이 다양한 표현들 전체의 완전하고도 완벽한 통일을 제공한다.

56:4.4 (640.3) 우리가 설명해 온 모든 우주들에 대해 그리고 그것들 안에 하느님이 존재하는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그리고 하느님을 아는 다른 모든 창조체들에게 있어서 그는 한 분, 너희의 아버지인 동시에 그들의 아버지이다. 개인성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복수일 수 없다. 하느님은 자신의 창조체들 각자에게 아버지이며, 하나 이상의 아버지를 갖는 것은 어떤 자녀에게도 명백하게 불가능하다.

56:4.5 (640.4) 철학적으로, 조화우주로 볼 때, 그리고 현시활동에 대한 특이한 차원들 그리고 위치들을 고려할 때 너희는 복수의 신(神)들의 활동을 상상하고 복수의 삼위일체들의 실존을 가정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주(主)우주 에 두루 경배하는 각 개인성에 대한 개인적 접촉의 경배 체험 안에서 하느님은 한 분이다; 통합되고 개인적인 신(神)은 우리의 파라다이스 부모, 증여자, 보호자, 그리고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 있는 필사자

사람으로부터 중앙 빛의 섬에 있는 영원한 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인성들의 아버지이다.

제 5 장. 신(神) 합일

56:5.1 (640.5) 파라다이스 신(神)의 단일성, 분할-불가능성은
실존적이며 절대적이다. 신(神)의 영원한 3가지
개인성구현—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들이 있지만, 그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
실재적으로 한 신(神), 나뉘어 있지 않고 나뉘 수 없는
분이다.

56:5.2 (640.6) 실존적 실체의 기원적 파라다이스-하보나
차원으로부터, 하위-절대인 두 차원들이 분화되었고, 그 후
즉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수많은 개인 연관-동료들과
종속체들의 창조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궁극위의 초월적
차원들에서의 아(亞)절대 신(神) 통일에 대한 고려를
시도하는 것이 이러한 연결 안에서는 부적절하지만,
그들에게서 신성이 다양한 창조 구역들에 대해 그리고
지능 존재들의 서로 다른 계층들에 대해 기능적으로
현시되고 있는, 다양한 신(神) 개인성구현의 통합하는
기능의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는 일은 가능하다.

56:5.3 (640.7) 초우주들 안에서의 신성의 현재 기능은 최극 창조자들—지역우주 창조자 아들들 그리고 영들, 초우주 옛적으로 늘 계신이, 그리고 파라다이스의 일곱 주(主) 영들—의 활동 안에 현시되고 있다. 이들 존재들은 우주 아버지를 향해 안쪽으로 이끄는 칠중 하느님의 처음 세 차원들을 구성하며, 칠중 하느님의 이 전체 권역은 진화하는 최극존재 안에 있는, 체험적 신(神) 첫 차원에서 조화-협동을 이루고 있다.

56:5.4 (641.1) 파라다이스에서 그리고 중앙우주 안에서, 신(神) 합일은 실존하는 하나의 사실이다.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우주들에 두루, 신(神) 합일은 하나의 업적이다.

제 6 장. 진화적인 신(神)의 통일

56:6.1 (641.2) 신(神)의 영원한 세 개인들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 나뉘지 않은 신(神)으로 활동할 때, 그들은 완전한 합일을 성취 한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연관하거나 나뉘어서 창조할 때, 그들의 파라다이스 자손은 신성의 특징적 합일을 나타낸다. 그리고 시간-공간 권역들의 최극 창조자들과 통치자들에 의해 현시되는 이러한 목적의 신성은, 우주의 미(未)개인적 에너지 합일체의 현존

안에서, 체험적 신(神)의 체험적 개인성 실체들과의
합당한 통일을 통해서만 풀어질 수 있는 실체 긴장을
구성하는, 체험적 최극위에 있는 주권의 통일하는 힘
잠재로서 결국 생겨난다.

56:6.2 (641.3) 최극존재의 개인성 실체들은 파라다이스
신(神)들로부터 나오며 외부 하보나 순환회로의
선도(先導)세계들 위에서 대우주의 창조자 신성들로부터
나오는 최극 전능자의 힘 특권들과 통합한다. 한
개인으로서의 최극위 하느님은 일곱 초우주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보나에 존재하였지만, 그는 영적인 차원에서만
활동하였다. 진화하는 우주들 안에 있는 다양한 신성
합성에 의한 최극위의 전능자 힘의 진화는, 최극 마음에
의하여 하보나에 있는 최극자의 영적 개인과 조화-
협동하며 동시에 무한한 영의 무한 마음속에
내재하는 잠재로부터 최극존재의 활동하는 기능적
마음으로 전환되는, 신(神)의 새로운 힘 현존으로 결국
생겨난다.

56:6.3 (641.4) 일곱 초우주의 진화 세계의 물질-마음을 가진
창조체들은 신(神) 합일을 오직 최극존재의 이 힘-개인성

합성으로 진화하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실존 차원에서든지 하느님은 그러한 차원에서 사는 존재들의 개념적 수용능력을 넘어설 수 없다. 필사자 사람은 진리를 인식하고 아름다움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선(善)에 대한 경배를 통하여, 사랑의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진화하고 그리고는 최극자에 대한 인식에 이르는 상승해가는 신(神) 차원들을 거치면서 진보해야만 한다. 신(神)은 그렇게 힘 안에서 통합되는 것으로서 파악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창조체가 납득하고 달성하는 영으로 개인성구현될 수 있다.

56:6.4 (641.5)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초우주들의 수도에서 전능자에 대한 힘 이해력을 성취하고 하보나의 외계 순환회로들에서 최극자에 대한 개인성 이해력을 성취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파라다이스 신(神)들을 발견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에서처럼 그에 따라, 최극존재를 실재적으로 발견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단계 영들인 최종자조차도 최극존재를 발견하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일곱 번째-단계-영 지위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최극자가 미래의 외계 우주들의 활동들

안에서 실재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될 때까지, 그들은 그럴 것이다.

56:6.5 (641.6) 그러나 상승자들이 우주 아버지를 칠중 하느님의 일곱 번째 차원으로 발견할 때, 그들은 이미 우주 창조체들과의 개인적 관계들에 대한 모든 신(神) 차원들의 첫째 개인의 개인성을 달성한다.

제 7 장. 우주적 진화 반향들

56:7.1 (642.1) 시간-공간 우주들 안에서의 진화의 꾸준한 진보는 모든 지능 창조체들에 대한 신(神)의 계속-확대되는 계시들을 동반한다. 세계에서, 체계, 별자리, 우주, 초우주에서, 또는 대우주 안에서의 진화적 진보가 절정에 달하는 것은 창조의 이러한 진보 단위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 안에서 신(神) 기능의 상응하는 확대에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신성 실현의 그러한 각각의 지역 향상에는 창조의 모든 다른 구역들에 대한 확대된 신(神) 현시활동의 어떤 뚜렷한 반향들을 동반한다. 파라다이스로부터 밖을 향해 확장함에 있어서, 실현된 그리고 달성된 진화의 새로운 각 권역은 우주들의 우주에 대한 체험적 신(神)의 새롭고도 더욱 커진 계시를 구성한다.

56:7.2 (642.2)

지역우주의 구성원들이 빛과 생명 속에 점진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칠중 하느님이 점점 더 현시된다. 시간-공간 진화는 통제 속에서 칠중 하느님—창조자 아들-창조 영 관계적-연합—의 첫 번째 표현과 함께 행성에서 시작한다. 체계가 빛 속에 정착하게 되면, 이 아들-영 연락은 충만한 기능을 달성 한다; 전체 별자리가 그렇게 정착하게 되면, 칠중 하느님의 두 번째 위상은 그러한 영역에 두루 더욱 활동적이 된다. 지역우주의 완성된 행정-관리적 진화가 초우주 주(主) 영들의 새롭고도 더욱 직접적인 돌봄에 의해 성취된다; 이 시점에, 여섯 번째 하보나 순환회로의 세계들을 통해 지나가면서 최극존재에 대한 상승자의 이해 안에서 최고조에 달하는 최극자 하느님의 언제까지나-증대되는 계시와 실현이 또한 시작된다.

56:7.3 (642.3)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은 지능 창조체들에 대한 실존적 신(神) 현시활동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조의 마음과 영 창조체들과의 개인성 관계에서 비슷하게 확대되지 않는다.

56:7.4 (642.4)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그들이 이들 신(神)들을 개인적 존재들로 접촉하고 그들에 대해 체험적인 개인적 인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영적으로 되고 합당하게 교육을 받기 훨씬 이전에 신(神)의 계속 이어지는 차원들의 미(未)개인적 현존을 체험할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

56:7.5 (642.5) 창조의 구역 안에서의 새로운 각각의 진화적 달성은, 신성 현시활동들에 의한 공간의 모든 새로운 쇄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창조 중에서 그 당시에 존재하고 그 이전에 조직된 단위들 안에서 신(神) 기능적-계시의 동시적 확대에 의해 성취된다. 우주들과 그것들의 구성단위들의 행정-관리적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이 쇄도는 여기에 약술(略述)한 기법에 항상 정확하게 입각하여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새로운 행정-관리적 전반적-통제의 그 이후 그리고 이어지는 시대들을 위해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은 행정-관리자들 중에서 진보된 집단들을 보내는 것이 실천 관행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궁극자 하느님도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된 지역우주의 후기 단계들 동안 우주들에 대해 자신의 초월적 전반적-통제를 전조하고 있다.

56:7.6 (642.6) 시간과 공간의 창조계들이 진화적 지위 속에서 점진적으로 정착될 때, 칠중 하느님의 처음 세 현시활동들의 상응하는 철수에 수반하여 최극위 하느님의 새롭고도 더욱 충만한 기능이 관측되는 것이 사실이다. 대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만약에 최극위 하느님이 시간과 공간의 이 창조계들에 대해 직접적 통제를 시작한다면 칠중 하느님의 창조자-창조적 현시활동들의 미래 활동은 무엇이 될 것인가? 시간-공간 우주들의 이 조직자들과 개척자들이 외계 공간에서 비슷한 활동들을 위해 해방될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들 그리고 관련된 문제들에 많이 추측하고 있다.

56:7.7 (643.1) 체험적 신(神)의 개척자들이 분별불가 절대자의 권역들 속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이들 창조계 중 비교적 초기 진화하는 신(新)시대들 동안에서의 칠중 하느님의 활동을 상상해 본다. 우리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 초우주 주(主) 영들의 미래 지위에 관하여 모두가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최극존재가 일곱 초우주들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기능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창조자 아들인 미가엘들이 이들 외계 우주에서 기능하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추측한다. 어떤 이들은 미래 시대가 연관된 창조자 아들과 신성한 사명활동자 사이에 보다 더 가까운 형태의 연합을 목격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장한다; 그러한 창조자 연합이 궁극적 본성의 연관-창조자 정체성의 어떤 새로운 표현으로 결국 생겨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되지 않은 미래의 이 가능성들에 관하여는 실제로 아무 것도 모른다.

^{56:7.8 (643.2)} 아무튼 우리가 아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 안에서 칠중 하느님이 우주 아버지에게 진보적 접근을 제공한다는 것과, 이 진화적 접근이 최극위 하느님 안에서 체험적으로 통합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외계 우주들 안에서 그러한 계획이 반드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추측 한다; 다른 한 편으로는, 언젠가 이 우주들에 거주할 새로운 계층의 존재들이 궁극적 차원들에서 그리고 아(亞)절대 기법에 의해 신(神)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외계 공간의 미래 우주들 안에서 어떤 신(神) 접근의 기법이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56:7.9 (643.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하게 된 그 초우주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외계 창조계들에서 거주하게 될 저들 존재들의 파라다이스-상승 생애의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미래 시대에 일곱 주(主) 영들의 협동과 함께 또는 협동 없이 최극위 하느님에 의해 관리-운영되면서, 일곱 초우주들을 통해 하보나에 접근하는 외계-공간자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

제 8 장. 최극 통합자

56:8.1 (643.4) 최극존재는 필사자 사람의 체험 속에서 삼중적 기능을 갖는다: 첫째로, 그는 시간-공간 신성의 통합자, 칠중 하느님이다; 둘째로, 그는 유한한 창조체들이 실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神)의 한계이다; 셋째로, 그는 아(亞)절대 마음, 영원한 영, 그리고 파라다이스 개인성과 교제하는 초월적 체험에 접근하는 필사자 사람의 유일한 큰길이다.

56:8.2 (643.5) 이미 지역우주에서 태어난, 초우주들 안에서 양육을 받고, 중앙우주에서 훈련을 받은, 상승하는 최종자는, 최극자 안에서 통합하는 칠중 하느님의 시간-

공간 신성에 대한 이해의 충만한 잠재를 그들의 개인적 체험 속에 포용한다. 최종자는 그들이 태어나지 않은 다른 초우주들에서 연속적으로 봉사하는데, 그리하여 가능한 창조체 체험의 칠중 신성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체험 위에 체험을 더한다. 내주하는 조절자들의 사명활동을 통하여 최종자는 우주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고, 그러나 바로 그러한 기법들에 의해서 최종자가 최극존재를 실제적으로 알게 되며, 그리고 그들이 외계 공간의 미래 우주 안에서 그것을 향하여 이 최극 신(神)에 대해 봉사하고 계시하도록 운명되어 있다는 것을 체험한다.

56:8.3 (644.1) 아버지 하느님과 그의 파라다이스 아들이 우리를 위해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영으로, 창발하는 최극존재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행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라. 우주 안에서의 사랑과 기쁨 그리고 봉사의 체험은 상호적이다. 아버지 하느님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증여하는 모든 것을 그들이 그에게 돌려주어야만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음 차례로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그들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진화하는 최극존재에게 증여하고 있다(또는 할 지 모른다).

56:8.4 (644.2) 모든 창조적 현상들은 선행하는 창조자-영 활동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예수가,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자기가 본 것들만 행한다.”고 말씀하였는데, 그것은 정말로 사실이다. 너희 필사자들은 최극자에 대한 계시를 너희 동료들에게 시간 속에서 시작할 수 있고, 너희가 파라다이스를 향하여 상승하면서 이 계시를 점점 더 확대시킬 수 있다. 영원 속에서 너희는 진화의 이 하느님에 대한 증강되는 계시들을 최극의 차원—심지어는 궁극적인—에서 일곱 번째 단계 최종자로서 제시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제 9 장. 우주적 절대 합일

56:9.1 (644.3) 분별불가 절대자와 신(神) 절대자는 우주 절대자에서 통합된다. 절대자들은 궁극자 안에서 조화-협동하고, 최극자 안에서 조절되며, 칠중 하느님 안에서 시간-공간이 변경된다. 하위-무한 차원들에서는 세 절대자들이 존재하지만, 영원 속에서 그들은 하나로 나타난다. 파라다이스에서는 신(神)의 세 개인성구현들이 존재하지만, 삼위일체 안에서 그들은 하나이다.

56:9.2 (644.4)

주(主)우주 의 주요 철학적 명제는 이렇다:
절대자(무한 속에서 하나인 세 절대자들)는 삼위일체 전에
존재하였는가? 그리고 절대자는 삼위일체의 선행인가?
또는 삼위일체가 절대자의 선행인가?

56:9.3 (644.5)

분별불가 절대자는 삼위일체와는 독립된 하나의
기세 현존인가? 신(神) 절대자의 현존은 삼위일체의
무제한 기능을 암시하는가? 그리고 우주 절대자는
삼위일체, 심지어는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최종
기능인가?

56:9.4 (644.6)

열핏 생각에서, 절대자가 만물—심지어는
삼위일체—의 조상이라는 개념은 일관성 충족과 철학적
통일에 대한 일시적인 만족을 잘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모든 결론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영원의 실재성에 의해 무효가 된다. 우리가 배우고 믿는
것은, 우주 아버지와 그의 삼위일체 연관-동료들이 본성과
그리고 실존에 있어서 영원하다는 것이다.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한 가지 일관된 철학적 결론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우주 지능체들에 대하여 절대자는 우주 내부적인 그리고
우주 외부적인 모든 기본적인 시원적인 공간 상황들에

대해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미(未)개인적 그리고
조화-협동하는 반응이다. 대우주의 모든 개인성
지능체들에게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최종, 영원, 최극위,
그리고 궁극위 속에 언제까지나 서 있으며 개인적 이해와
창조체 실현의 모든 실천적 목적들에 대해 절대 상태로
있다.

56:9.5 (644.7) 창조체 마음들이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그들은
우주적 스스로 이신 이를 삼위일체와 절대자 둘 모두의
1차적 원인으로 그리고 분별불가한 근원으로 최종적인
가정을 세우도록 인도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자에
대한 개인적 개념을 받아들이고자 원할 때, 우리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관념과 이상으로
되돌아간다.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는 미(未)개인적 이
절대자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거나 자각을 증강시키고자
할 때, 우리는 우주 아버지가 절대 개인성의 실존적
아버지라는 사실을 회상 한다; 영원한 아들은, 그것이 비록
체험적 의미에서 절대자의 개인성구현은 아니겠지만,
절대 개인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더 나아가 체험적
삼위일체들을 신(神) 절대자의 체험적 개인성구현
안에서의 최고 정점으로 계속 상상하게 되는 반면, 우주

절대자를 최극위와 궁극위 그리고 무한—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통합되고 조화-협동된 신(神) 관계적-연합의 미(未)개인적 활동들의 현존을 현시하는, 우주와 가외(加外)우주 현상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착상한다.

56:9.6 (645.1) 아버지 하느님은 유한으로부터 무한에 이르는 모든 차원들에서 식별될 수 있으며, 파라다이스로부터 진화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그의 창조체들이 그를 다양하게 알지라도 오직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만이 그를 무한성으로 안다.

56:9.7 (645.2) 영적 개인성은 오직 파라다이스에서만 절대적이며, 절대자에 대한 개념은 오직 무한성 안에서만 분별불가적이다. 신(神) 현존은 오직 파라다이스에서만 절대적이며, 하느님의 계시는 항상 부분적이고 상대적이며 분별불가 절대자의 공간 잠재력 안에서 그의 힘이 체험적으로 무한하게 될 때까지 진보적이어야만 하며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그의 개인성 현시활동은 신(神) 절대자의 현시하는 현존 안에서 체험적으로 무한하게 되며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무한성의 이 두 잠재들은 우주 절대자 안에서 실체-통합이 된다.

56:9.8 (645.3) 그러나 하위-무한 차원들을 넘어서면 세 절대자들은 하나이며, 그리고 그로서 그 어떤 다른 실존 계층이 무한의 의식을 언제까지나 자아-실현하는 것과 상관없이, 신(神)-실현화된 무한이다.

56:9.9 (645.4) 영원 안에서 실존적 지위는, 비록 또 다른 영원이 무한한 영원—영원한 무한—안에 선천적인, 체험적 잠재에서의 자아-실현을 체험하도록 요구된다 하더라도, 실존적 무한의 자아-의식을 의미한다.

56:9.10 (645.5) 그리고 아버지 하느님은 신(神)의 모든 현시활동의 개인적 근원이며 모든 우주들의 우주에 두루 지능 창조체들 그리고 영 존재들에게 실체이다. 개인성들로서, 현재 또는 영원한 미래의 계속되는 우주 체험들 안에서, 너희가 칠중 하느님에 대한 달성을 이루든지, 최극위 하느님을 이해하든지, 궁극자 하느님을 발견하든지, 또는 절대자 하느님의 개념을 파악하려고 시도하든지에 상관없이, 너희는 너희가 갖는 각 모험의 성취에 있어서 새로운 체험적 차원에서 영원한 하느님—모든 우주 개인성들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을

다시 찾으리라는 점을 너희의 영원한 만족에 이르기까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56:9.11 (645.6) 우주 아버지는 그것이 최극적으로, 심지어는 궁극적으로 절대 가치들과 의미들—분별불가한 실체—의 궁극 이후 합일 안에서 실현되어야만 하는 우주적 합일에 대한 설명이다.

56:9.12 (645.7) 주(主)기세조직자들은 공간 속으로 나아가고 그것의 에너지들을 우주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흡인에 대해 중력 반응이 되도록 동원 한다; 그 후에 창조자 아들들이 그곳으로 오는데, 그들은 이 중력-반응 기세들을 거주민이 사는 우주들 안으로 조직하고, 그리고는 그 안에 지능 창조체들이 진화하여 그들이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영을 그들 위에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모든 가능한 신성 속성들 안에서 아버지와 비슷하게 되어가면서 아버지에게로 상승하도록 한다.

56:9.13 (645.8) 우주에 두루 파라다이스 창조 무리의 끊임없고 확대하는 행진은 우주 아버지의 중력 지배의 언제까지나-확장하는 권역과,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을 앎으로써 그와 같이 되기를

선택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를 성취하고 하느님을 발견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지능 창조체들의 다양한 유형들의 끊임없는 증식의 전조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56:9.14 (646.1) 우주들의 우주는 함께 통합되어 있다. 하느님은 힘과 개인성에 있어서 하나이다. 거기에는 모든 차원의 에너지와 모든 위상의 개인성이 조화-협동한다. 철학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말해서, 개념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모든 사물들과 존재들은 파라다이스 아버지 안에 중심을 둔다. 하느님이 전부이고 모든 것 속에 있으며, 어떤 사물이나 존재도 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제 10 장. 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

56:10.1 (646.2)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한 세계들이 최초 단계로부터 일곱 번째 신(新)시대로 진보하면, 그것들은 창조자 아들에 대한 찬미로부터 그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에 대한 경배에 이르기까지, 칠중 하느님의 실체의 실현을 연속적으로 이룩한다. 그러한 어떤 세계의 역사의 일곱 번째 단계가 계속되는 동안 계속 진보하는 필사자들은 최극위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성장하는 반면, 궁극자

하느님의 보호하는 사명활동의 실체를 막연하게 식별한다.

56:10.2 (646.3) 이 영광스러운 시기에 두루, 계속-진보하는 필사자들이 주로 추구하는 것은 신(神)의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더욱 충만한 실현에 대한 추구이다. 이것은 마음과 물질 그리고 영으로 하느님을 식별하려는 사람의 노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필사자가 이것을 추구할 때, 그는 철학과 우주론 그리고 신성에 대한 체험적 연구 안에서 점점 더 자신을 발견한다.

56:10.3 (646.4) 너희는 철학을 파악하고, 경배와 사회적 봉사 그리고 개인적인 영적 체험 안에서 어느 정도 신성을 이해한다, 하지만 너희는 너무나 자주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조화우주론—를 사람의 조잡한 예술적 노력에 대한 연구에 국한시킨다. 아름다움, 예술은 주로 대조되는 것들에 대한 통일의 문제이다. 다양성은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에 필수적이다. 최극의 아름다움, 유한한 예술의 절정은 창조자와 창조체라는 조화우주 양 극단의 광대함에 대한 통일의 드라마이다. 사람이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과 하느님이 사람을 발견하는 것—창조체가 창조자와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되는 것—은 최극적으로 아름다운 것의 지고한 달성, 조화우주 예술의 절정에 대한 달성이다.

56:10.4 (646.5) 따라서 물질주의, 무신론은 추함의 극대화, 아름다움에 대한 유한한 대립물의 극치이다. 최고의 아름다움은 이전-실존하는 조화로운 실체로부터 태어나 있는, 다양성들에 대한 통일의 파노라마 안에 있다.

56:10.5 (646.6) 생각의 조화우주론적 차원에 대한 달성은 다음을 포함한다:

56:10.6 (646.7) 1. 호기심. 조화에 대한 배고픔과 아름다움에 대한 목마름. 화합하는 조화우주 관계들의 새로운 차원들을 발견하려는 끊임없는 시도들.

56:10.7 (646.8) 2. 심미적 감상.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과 실체의 모든 차원들에서의 모든 창조적 현시활동들의 예술적 접촉에 대한 계속-진보하는 깊은 감상.

56:10.8 (646.9) 3. 윤리 감수성.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감상은 진리의 실현을 통하여 모든 존재들과 신(神)이 가지는

관계에서 신성한 선(善)의 인식을 촉발시키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적합하다는 감각을 느끼도록 인도한다. 그리하여 조화우주론마저도 신성한 실체 가치를 추구하도록—하느님-인식으로—인도한다

56:10.9 (646.10)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된 세계들은 진리와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에 대한 이해와 매우 충분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 본질특성 가치들이 시간과 공간의 영역들에 대한 신(神)의 계시를 포용하기 때문이다. 영원한 진리의 의미들은 필사자 사람의 지적 그리고 영적 본성들에게 어떤 병합된 호소를 한다. 우주적 아름다움은 조화우주 창조의 조화로운 관계들과 박자들을 포용 한다; 이것은 더욱 분명한 지적 호소가 되고 그리고 물질적 우주의, 통합되고 동조적 이해를 향하여 이끈다. 신성한 선(善)은 유한 마음에게 무한한 가치들의 계시를 대표하는데, 그것은 그 안에서 인간적 이해에서의 영적 차원의 바로 그 문턱까지 감지되고 높아진다.

56:10.10 (647.1) 진리는 과학과 철학의 기본이며, 종교의 지적 기초를 제시하고 있다. 아름다움은 예술, 음악 그리고 모든 인간 체험의 의미 가득한 리듬들을 후원한다. 선(善)은

윤리와 도덕 그리고 종교—완전성-갈망자의 체험적인 것—의 감각을 포용한다.

56:10.11 (647.2) 아름다움의 실존은 진보하는 진화의 사실이 최극 마음의 지배임을 나타냄에 따라서 그만큼 확실하게, 깊이 이해하는 창조체 마음이 현존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아름다움은 현상적 실체의 멀리-퍼지는 다양성의 조화로운 시간-공간 합성에 대한 지적 인식이며, 그 모든 것이 선재(先在)하고 영원한 하나 됨에서 유래된다.

56:10.12 (647.3) 선(善)은 신성하고 완전한 수많은 차원에서의 상대적 가치에 대한 정신적 인식이다. 선(善)을 인식한다는 것은 도덕적 상태의 마음, 선(善)과 악(惡)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진 개인 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선함의 소유, 곧 위대함의 소유는 실제적 신성 달성에 대한 척도이다.

56:10.13 (647.4) 참된 관계의 인지는 진리와 실수를 분간하기에 충분한 마음을 암시한다. 유란시아의 인간 마음들에게 투입된, 증여자 진리의 영은 반드시 진리—하느님을 향한 영원한 상승에서 그들이 조화-협동되면서 그에 따르는,

모든 사물과 모든 존재의 살아있는 영 관계—에 대해 반응한다.

56:10.14 (647.5) 모든 전자(電子), 생각, 또는 영의 모든 총동은 전체 우주 안에서 하나의 활동 단위이다. 오로지 죄가, 정신적 그리고 영적 차원에서 저항하는, 고립되고 그리고 악한 중력이다. 우주는 하나의 전체이다; 고립해서 존재하거나 살고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자아-실현은 그것이 반(反)사회적일 때 잠재적으로 악이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 혼자서 살지 못한다." 는 말은 말 그대로 진실이다. 조화우주 사회화는 개인성 통일의 최고 형태를 이룬다. 예수는 말씀하였다: "너희 중에 가장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를 섬기는 자가 되라."

56:10.15 (647.6) 진리와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 조차도—마음과 물질 그리고 영의 우주에 대한 사람의 지적 접근도—어떤 신성하고도 최극의 이상을 가진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병합되어야만 한다. 필사자 개인성이 인간 체험을 물질, 마음 그리고 영과 통합하듯이, 이 신성하고 최극의 이상은 최극위 안에서 힘-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다운 사랑의 하느님으로서 개인성구현 된다.

56:10.16 (647.7) 어떤 주어진 전체에 대한 부분들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모든 통찰은 그 전체에 대한 모든 부분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납득을 요구한다; 우주 안에서 이것은 창조적 전체에 대한 창조된 부분들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신(神)은 우주적이고 영원한 달성의 초월적인, 심지어는 무한한 목표가 된다.

56:10.17 (647.8) 우주적 아름다움은 물질적 창조 안에서 파라다이스 섬의 반영을 감지하는 것인 반면, 영원한 진리는 필사 종족들에게 자신들을 증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자신들의 진리의 영을 부어준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특별한 사명활동들이다. 신성한 선(善)은 무한한 영의 갖가지 개인성들의 사랑스러운 사명활동에서 더욱 충분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 세 본질특성들의 전체 총계인 사랑은 사람이 그의 영 아버지로 하느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56:10.18 (648.1) 물리적 물질은 절대적 신(神)들의 파라다이스 에너지-빛남의 시간-공간 그림자이다. 진리 의미들은 신(神)의 영원한 말씀에 대한 필사자-지성 반향들—최극 개념들에 대한 시간-공간 이해이다. 신성의 선함의

가치들은 진화 세계들의 시간-공간 유한 창조체들에 대한 우주자, 영원자, 그리고 무한자의 영 개인성들의 자비로운 사명활동들이다.

56:10.19 (648.2) 의미 있는 신성의 이 실체 가치들은 신성한 사랑으로서 각각의 개인적 창조체와의 아버지의 관계 속에 혼합되어 있다. 그들은 신성한 자비로서 아들과 그의 아들들 속에 조화-협동되어 있다. 그들은 영과 그의 영 자녀들을 통하여 신성한 사명활동으로서 그들의 본질특성들, 시간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스러운 자비에 대한 묘사를 나타낸다. 이 세 신성들은 힘-개인성 합성으로서 최극존재에 의해 우선적으로 현시된다. 그들은 상승하는 일곱 차원들에서 신성한 의미들과 가치의 서로 다른 일곱 관계적-연합들 안에서 칠중 하느님에 의해 다양하게 보인다.

56:10.20 (648.3) 유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리와 아름다움 그리고 선함은 신성 실체의 전체 계시를 포용한다. 신(神)의 이 사랑-이해가 하느님을-아는 필사자들의 삶 속에서 영적인 표현을 찾을 때, 이것들은 신성의 열매들: 지적 평화, 사회적 진보, 도덕적 만족, 영적 기쁨, 그리고

조화우주 지혜를 맞는다. 빛과 생명의 일곱 번째 단계에 있는 어떤 세계의 진보된 필사자들은 사랑이 우주 안에서 가장 위대한 것임을 이미 배웠다—그리고 그들은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안다.

56:10.21 (648.4)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56:10.22 (648.5) [네바돈 계시 무리단의 요청에 의하여 그리고 유란시아의 대리 행성영주인 어떤 특정의 멜기세덱과 협력하여, 유란시아를 방문 중인 어느 막강한 메신저에 의해 제시되었음]

56:10.23 (648.6) 우주적 합일에 대한 이 글은 다양한 저자들에게 의한 일련의 글들 중 25번째이며, 만투시아 멜기세덱의 지도아래에서 활동하는 12 숫자를 이루는 네바돈 개인성 위원회에 의해 한 집단으로서 후원되었다. 우리가 우리들의 상급자들로부터 허가된 기법에 따라서 유란시아 시간으로 1934년에 이들 이야기를 구술하였고 그것들을 영어 언어로 기록하였다.

유란시아 책

부 III. 유란시아의 역사

제 57 편 유란시아의 기원(起源)

57:0.1 (651.1) 유란시아의 선사시대와 초기 역사에 대한 기록을 위해 예루셈에 있는 기록 보관소로부터 인용하여 제시함에 있어서, 우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법—365일을 한 해로 정하여 윤년을 두는 달력—으로 시간을 환산하라는 지도를 받았다. 원칙적으로, 기록에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년 수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제시함에 있어서 더 나은 방법으로 전체 숫자들에 근접하도록 할 것이다.

57:0.2 (651.2) 백만 년 또는 이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교 연대인 20세기 초반으로부터 숫자를 정하여 사건의 날짜를 정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년, 백만 년, 그리고 10억 년의 균등한 기간에 발생한 먼 옛날의 사건을 서술하게 될 것이다.

제 1 장. 안드로노버 성운

57:1.1 (651.3) 유란시아는 너희의 태양으로부터 기원되었으며, 너희의 태양은 안드로노버 성운으로부터 산출된 가지각색의 태양들 중의 하나인데, 한 때는 네바돈이라는

지역우주의 물리적 힘과 물질적 질료(質料)의 구성 요소들로 되어있다. 그리고 이 광대한 성운 자체는 까마득한 옛날에 오르본톤이라는 초우주 속에 있는 공간의 우주 기세-충전에서 그 기원을 가진다.

57:1.2 (651.4)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당시에, 파라다이스에 있는 1차 주(主)기세 조직자들은 나중에 안드로노버 성운으로 조직된 공간적 에너지들을 오랫동안 충분히 통제해 오고 있었다.

57:1.3 (651.5) 987,000,000,000년 전에 연관-동료 기세 조직자 그리고 그 후에는 오르본톤 계열의 811,307번 대리 검열자가 유버사로부터 시찰을 나왔으며, 이제 오르본톤의 동쪽 부분에 있는 특정 구역에서 물질적인 현상을 시도하기에 적합한 공간 상태가 되었음을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게 보고하였다.

57:1.4 (651.6) 900,000,000,000년 전에, 유버사의 자료들이 증언되었고, 811,307번 검열자에 의해 그 전에 선정된 지역으로 초우주 정부가 기세 조직자와 참모진을 보낼 수 있는 위임권과 관련하여, 평형을 관장하는 유버사 의회로부터 받은 허락이 그곳에 기록되었다. 오르본톤의

관계자는 새로운 물질적 창조를 계획하도록 소집하라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잠재적인 우주를 처음 발견한 자에게 위임하였다.

57:1.5 (652.1) 이러한 허락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기세
조직자와 참모가 이미 유버사를 출발하여, 오르본톤 안에
새로운 물리적 창조의 창발 속에서 종결시킬 지도 모르는
일정 기간 동안의 활동들 속에 후에 가담하게 될 동쪽 공간
부분으로 그들이 여행을 떠났음을 의미한다.

57:1.6 (652.2) 875,000,000,000년 전에, 876,926번의 거대한
안드로노버 성운이 정식으로 생겨났다. 결국에는 이
광대한 공간의 회오리바람으로 확대될 이 에너지
소용돌이를 개시하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기세 조직자와
연락참모의 현존뿐이었다. 그러한 성운의 회전이 시작된
후에, 살아있는 기세 조직자들은 회전 판 표면의 오른
편으로 물러나 있기만 하면 되며, 이 시간 이후로는
에너지의 선천적인 본질특성들이 그러한 하나의 새로운
물리적 체계를 진보적으로 질서 있게 진화시키게 되어
있다.

57:1.7 (652.3) 이 무렵부터 이야기는 초우주 개인성들의 기능 활동으로 옮겨진다. 실체 안에서 그 사건의 진정한 시작은 이 시점—파라다이스에서 기세 조직자들이, 오르본톤 초우주의 힘 지도자들과 물리 통제자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된 공간-에너지 상태들을 조성하면서, 뒤로 물리설 준비를 한 바로 그 시점—부터 이다.

제 2 장. 제 1차 성운 단계

57:2.1 (652.4) 모든 진화적인 물질적 창조계들은 회전하는 기체상태의 성운으로부터 탄생되며, 그러한 1차 성운은 기체 상태의 초기 부분에 내내 둥그렇다. 그것들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나선형을 이루게 되며, 태양이 조성되는 기능이 자연적인 경로를 걷게 되면, 그것들은 대개 별들의 집합으로 귀착되든지 아니면 다양한 숫자의 행성들과 위성들 그리고 너희가 소속되어 있는 조그마한 태양계와 여러모로 흡사한 작은 군(群)들에 의해 둘러싸인 수많은 태양들로 변화된다.

57:2.2 (652.5) 800,000,000,000년 전에, 안드로노버 성운의 창조는 오르본톤의 거대한 1차 성운들 중의 하나로 잘 조성되었다. 근처에 있는 우주들의 천문학자들이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보았을 때, 그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보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근접된 곳에서 창조들에게 적용된 중력 추정치들은, 공간 속에서 물질로 굳어지는 일들이 안드로노버 구역에서 발생되고 있었음을 나타내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57:2.3 (652.6) 700,000,000,000년 전에, 안드로노버 체계는 거대한 크기로 나타났으며, 매우 신속한 속도로 진화하는 새로운 이 물질 체계의 힘 중심들에 협력을 공급하고 지원을 잘 제공하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아홉 개의 물질 창조계 구역으로 물리통제자들이 추가로 파견되었다. 이러한 아득히 먼 옛날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창조계들에게 전달된 모든 물질들은 바퀴모양의 이러한 거대한 공간적 띠의 한계 속에 가두어져 있었으며, 그 띠는 계속하여 소용돌이치다가, 최대 직경에 도달하게 되면 더욱 빨리 회전하여 응집되고 수축되었다.

57:2.4 (652.7) 600,000,000,000년 전에, 안드로노버의 에너지-동원이 최고점에 달하는 기간이 되었다; 성운은 최대 부피에 도달하였다. 이 때 성운은 납작한 타원 모양으로 회전하는 거대한 기체 구름이었다. 이 시기는 차별적인

질량 형성과 변화하는 회전 속도가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였다. 공간적인 기체가 물질로 구성되어 변화함에 있어서 중력을 비롯한 다른 작용들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제 3 장. 제 2차 성운 단계

57:3.1 (653.1) 이제는 거대한 성운이 점차 나선형의 소용돌이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멀리 있는 우주들의 천문학자들에게도 확실하게 식별될 정도가 되었다. 이것이 대부분의 성운의 자연적인 역사이다; 태양을 내던지고 우주 구축 작업이 시작되기에 앞서, 이러한 2차 공간 성운들이 대개 소용돌이 현상으로 관찰된다.

57:3.2 (653.2) 그 일이 있던 아주 먼 옛날에, 가까이 있는 별 연구자들이 관찰한 이러한 안드로노버 성운의 변형은, 20세기의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의 방향을 우주 밖으로 돌리고 가까이에 있는 외부에서 현재 소용돌이치고 있는 성운을 바라볼 때 발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57:3.3 (653.3) 최대 질량에 도달되었을 즈음에, 기체 상태인 내용물의 중력 통제가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기체 누출 단계, 두 개의 거대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팔처럼 앞으로 뻗어 나가는 기체 유출이 발생되었으며, 기체 유출은 모체가 되는 큰 덩어리의 반대편에서 기원되었다. 이러한 거대한 중앙 핵심부의 빠른 회전은 돌출 된 두 개의 투사되는 기체 기둥에게 곧 소용돌이치는 모양이 되게 하였다. 뻗어나가는 이 기둥들 일부분이 냉각된 후에 응고됨으로써 결국에는 울퉁불퉁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렇게 농축된 부분들은 거대한 체계들을 이루었고, 본체가 되는 바퀴 모양의 중력 작용 속에 견고하게 붙잡혀 있으면서 성운의 기체 구름 한 가운데에 있는 공간을 통해 소용돌이치는 물질들의 보조적 체계들을 이루었다.

57:3.4 (653.4) 그러나 성운은 이미 수축되기 시작하였고, 회전 속도가 증가됨에 따라 중력 통제가 감소되었다; 머지않아서, 기체상태의 바깥쪽 구역들이 성운의 핵심에 긴밀하게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재적으로 이탈되기 시작하였고, 불규칙한 윤곽선을 그리는 순환회로들 위의 공간 속으로 옮겨갔으며, 그것들의 순환회로를 다 완료하기까지 핵심 구역으로 다시 돌아왔고, 이러한 운동이 계속 반복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성운이 진보되는 데 있어서 일시적인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계속하여 증가되는 회전 속도는 곧 서로 독립적인 순환회로를 갖는 무수한 태양들을 만들어 내었다.

57:3.5 (653.5) 그리고 멀고 먼 옛날에 이상과 같은 일이 안드로노버에서 일어났었다. 바퀴 모양의 에너지 영역은 최대한의 확대 상태에 이를 때까지 점점 더 커졌고, 그러고 나서 응축 과정이 시작될 때, 그것은 점점 더 빨리 소용돌이를 쳤으며 결국에는 결정적인 원심 분리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고 엄청난 분산이 시작되었다.

57:3.6 (653.6) 500,000,000,000년 전에, 최초의 안드로노버 태양이 탄생되었다. 타는 듯 한 이 광채는 모체 중력 장악으로부터 이탈되었고, 창조의 조화우주 안에서 독립적인 모험여행에 있는 공간 속으로 떨어져 나왔다. 그것의 궤도는 이탈된 경로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러한 젊은 태양들은 재빨리 구체 모양으로 되어가며, 공간의 별로서 길고도 사건 많은 생애를 시작한다. 말기에 도달한 성운 핵들을 제외하고, 오르본톤의 거의 대부분 태양들이 모두 비슷한 탄생을 가지고 있다. 이탈된 이들 태양들은 진화의 다양한 기간과 이에 부수되어 일어나는 우주적 봉사를 두루 거친다.

57:3.7 (653.7) 400,000,000,000년 전에, 안드로노버 성운의 재(再)흡수 기간이 시작되었다. 모체 핵의 단계적인 커짐과 계속되는 응축의 결과로써 가까이에 있는 보다 작은 많은 태양들이 흡수되었다. 곧 이어서 성운 응축이 끝나는 위상, 에너지와 물질이 거대한 공간적 집단들을 이루는 최종적인 분리 단계보다 항상 앞서서 일어나는 기간이 시작되었다.

57:3.8 (654.1) 파라다이스의 창조자 아들인 네바돈의 미가엘이, 우주를 건설하는 자신의 모험 장소로, 집대성-해체하고 있는 이 성운을 선택한 것은 이 신(新)시대로부터 백만 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구원자별의 고안건축 세계들과, 행성들에 대한 100개의 별자리 본부들 집단들이 거의 즉시 시작되었다. 특별하게 창조된 세계들로 묶여진 이들 군(群)들이 완성되는 데에는 거의 백만 년이 소요되었다. 지역 체계의 본부들이 있는 행성들은 그 때부터 약 50억 년 전까지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걸쳐서 건설되었다.

57:3.9 (654.2) 300,000,000,000년 전에, 안드로노버 태양 순환회로들이 성공적으로 구축되었으며, 성운 체계는

물리적으로 상대적인 안정을 누리는 과도기를 통과하고 있었다. 이 무렵에 미가엘의 참모진이 구원자별에 도착하였고, 오르본톤에 있는 유버사 정부는 네바돈이라는 지역우주에 대한 물리적인 인식을 확장하였다.

57:3.10 (654.3) 200,000,000,000년 전에, 안드로노버 중앙 군(群) 혹은 핵심 덩어리 속에 엄청난 열이 발생되면서 수축과 응집 과정의 진행이 목격되었다. 중앙에 있는 바퀴 모양의 태양-모체 가까이에 있는 영역에 상대적인 공간이 나타났다. 외부 영역들은 보다 안정되고 잘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새로 태어난 태양의 주위를 회전하는 어떤 행성들은 생명이 이식되기에 적당할 만큼 이미 충분히 냉각되었다. 네바돈에서 가장 오래된 거주 행성이 이들 시기에 생겼다.

57:3.11 (654.4) 이제 네바돈의 완성된 우주적 기능구조가 처음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고, 미가엘의 창조는 거주하는 곳 그리고 진보적인 필사자 상승의 우주로서 유버사에 등록되었다.

57:3.12 (654.5) 100,000,000,000년 전에, 성운의 응축 긴장이 극점에 도달하였다; 열에 의한 긴장도 최대 점에 도달하였다. 중력과 열이 대립되는 결정적인 단계가 어떤 경우에는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지 않아서 열이 중력을 이기게 되고 태양이 발광되기 시작하는 눈부신 장면의 기간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 순간에 우주 성운의 제 2차 생애는 종지부를 찍게 된다.

제 4 장. 제 3차와 제 4차 단계

57:4.1 (654.6) 성운은 제 1차에는 회전하고; 제 2차에는 소용돌이가 일어나며; 제 3차에는 첫 번째 단계의 태양 분산이 있는 반면에, 제 4차에는 근원적인 핵이 구형 성단으로 종결되든지, 아니면 말기를 맞이한 태양 체계의 중심으로서 기능하는 고립된 태양으로 종결되면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태양 발광 주기가 포함된다.

57:4.2 (654.7) 75,000,000,000년 전에, 이 성운은 태양이 집단적으로 생기는 단계의 최고점에 도달하였다. 이 시기는 태양이 감소되는 첫 기간의 정점에 해당되었다. 이 태양들의 대부분은 그 후로 행성들, 위성들, 광선을

반영하지 않는 우주 섬들, 혜성들, 그리고 조화우주 먼지 구름들로 이루어진 광대한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57:4.3 (654.8) 50,000,000,000년 전에, 첫 번째 단계의 태양 분산이 완료되었다; 성운은 실존에서의 스스로의 3차 주기를 신속하게 완결하고 있었고, 그 기간 동안 876,926개 태양계들에게 기원을 주었다.

57:4.4 (654.9) 25,000,000,000년 전에, 성운 삶의 제 3차가 완료되는 것이 목격되었으며, 모체가 되는 이 성운으로부터 발생된 멀리 퍼져나가는 성운들의 상대적인 안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물리적인 응축과 열 발생 증가의 과정은 성운 잔존물들의 중앙 물질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었다.

57:4.5 (655.1) 10,000,000,000년 전에, 안드로노버의 제 4차 순환주기가 시작되었다. 핵심-덩어리 온도가 최고점에 달하였다; 응축 과정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기원적인 모체 핵은 자체의 내부-열 응축 긴장과, 둘러싸고 있는 독립된 태양계들로 인하여 증가되는 중력-조수 작용의 혼합된 압력 아래에서 진동하고 있었다. 두 번째 성운 태양 주기를 시작하게 하는 핵심의 분출이 임박하게

되었다. 성운 실존의 제 4차 순환주기가 바야흐로 시작되려 했다.

57:4.6 (655.2) 8,000,000,000년 전에, 엄청난 말기적 폭발이 시작되었다. 그러한 조화우주 격변기를 맞이하였을 때에는 오직 외부에 있는 체계들만이 안전하다. 그리고 이것이 성운의 종말의 시작이었다. 이러한 최종적인 태양 분출은 거의 20억년 동안 계속되었다.

57:4.7 (655.3) 7,000,000,000년 전에, 안드로노버 말기 분산현상이 목격되었다. 이는 보다 큰 말기적 태양들이 생겨나는 기간이었으며 지역적 물리적 교란이 최고 상태에 이른 기간이었다.

57:4.8 (655.4) 6,000,000,000년 전에, 말기 분산이 종료되었고, 너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태양이 생겨났으며, 안드로노버의 두 번째 태양 군(群)의 끝에서 56번째로 탄생되었다. 성운 핵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분출되면서, 136,702개의 태양들이 생성되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고적하게 궤도를 운행한다. 안드로노버 성운에서 기원된 태양들과 태양계들의 수는 1,013,628개이다. 태양계를 갖고 있는 태양의 숫자는 1,013,572개이다.

57:4.9 (655.5) 그리고 이제는 거대한 안드로노버 성운은 더 이상 없으나, 공간의 이 어머니 구름 안에서 기원된 많은 태양과 그들의 행성 가족 위에서 계속 살고 있다. 이 거대한 성운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핵심 부분은 붉은 빛을 내면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으며 빛의 거물의 막강한 두 세대의 이 장엄한 어머니 주변을 지금도 회전하고 있는, 165개 세계의 나머지 행성가족에게 누그러진 빛과 열을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다.

제 5 장. 몬마시아의 기원—유란시아 태양계

57:5.1 (655.6) 5,000,000,000년 전에, 너희 태양계의 태양이 비교적 독립적인 불타는 구체를 이루었으며, 가까이 있는 공간에서 돌고 있는 대부분의 물체, 자기 자신의 생성에 기여하였던 마지막 격변으로부터의 잔여물들이 자기에게 모이도록 하였다.

57:5.2 (655.7) 너희에게 비취는 태양은 오늘날 상대적인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지만, 11.5년 주기의 태양 흑점은 그것이 청년기에 있는 가변성의 별임을 나타내 준다. 너희 태양은 초기에는 계속 응축하였고 결과적으로 온도가 계속 상승하여 그 표면에 거대한 격변을 일으켰었다.

이러한 거대한 용기로 인하여 일어나는 밝기 변화 주기는 3.5일이었다. 이러한 가변 상태, 주기적인 변동은 태양으로 하여금 곧 부닥치게 될 특정한 외부 영향들에게 아주 잘 반응하도록 하였다.

57:5.3 (655.8) 너희에게 비취는 태양의 행성 군(群), 너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소속된 태양계의 이름인 몬마시아의 독특한 기원을 위하여 준비된 지역 공간의 무대는 그렇게 설치되었다. 오르본톤에 소속된 행성 체계들 중에서 비슷한 기원을 갖는 것들은 1% 미만이다.

57:5.4 (655.9) 4,500,000,000년 전에, 거대한 앙고나 체계가 독립된 이 태양 근처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엄청나게 큰 이 체계의 중심은 거대한 암흑 공간이고, 견고한 상태이며, 심하게 충전(充電)되어 있고, 엄청난 중력이 작용되고 있었다.

57:5.5 (656.1) 앙고나가 태양으로 더 접근하여, 태양이 진동하면서 최고로 확대되는 순간, 기체 상태의 물질적 기둥들이 태양의 거대한 허처럼 우주 밖으로 분출되었다. 처음에는 혀 모양으로 불타는 이 기체 기둥들이 반드시 태양 쪽으로 되돌아갔지만, 앙고나가 점점 더 접근하자,

거대한 방문객의 중력 작용이 너무 커져서 혀 모양의 이 기체 기둥들이 어떤 지점까지 떨어져 나갔으며, 뿌리 부분은 태양으로 되돌아갔지만 바깥 부분은 물체의 독립된 몸체, 태양계의 운석들을 형성할 만큼 떨어져 나가게 되었으며, 그것들은 자체적인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즉시 태양의 주위를 돌기 시작하였다.

57:5.6 (656.2) 앙고나 체계가 더 가까이 접근하자, 태양의 분출은 더욱 심화되었다; 점점 더 많은 물질이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주변 공간에서 맴도는 독립적 몸체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앙고나가 태양에 가장 근접되게 접근할 때까지 500,000년 동안 계속 발전되었다; 태양은 그 후에 주기적인 내부 격변들 중의 하나로 인하여, 부분적인 분열을 체험하였다; 반대편에서도 동시에 엄청난 양의 물질이 분출되었다. 앙고나가 있는 쪽에서는 거대한 기둥 모양으로 태양 기체들이 분출되었고, 오히려 양 끝을 향하였으며 가운데는 현저하게 부풀어 올랐고, 태양의 직계 중력 통제 한계로부터 영구적으로 벗어나게 되었다.

57:5.7 (656.3) 이렇게 하여 태양으로부터 분리된 거대한 기둥 모양의 태양 기체는 후에 태양계에 속한 12개의 행성들로

진화되었다. 태양계를 이룩한 거대한 원형체의 분출에 조수적인 공감으로 반대편에서 일어난 반향적인 가스 유출은 태양계의 우주 먼지와 운석으로 응축되기 시작하였지만, 이 물체의 매우 많은 부분은 후에 앙고나 체계가 멀리 있는 공간으로 물러감에 따라 태양의 중력에 다시 흡입되었다.

57:5.8 (656.4) 소행성들과 운석들로서 현재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대한 양의 물질과 태양계 행성들의 조상이 되는 물질을 앙고나가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태양계의 물질 중 어떤 것도 자체적으로 안정을 이루지는 못한다. 비정규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태양의 내용물 중 어떤 것이라도 실재적으로 흠칠 정도로 가까이 온 적은 없었지만, 지금-현재의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분출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가까이 접근하였었다.

57:5.9 (656.5) 안쪽에 있는 5개의 행성들과 바깥쪽에 있는 5개의 행성들은 앙고나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거대한 중력 팽창이 점차 끝나고 부피가 줄어들면서, 차가워지고 응축되는 핵들로부터 곧 소규모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반면에 토성과 목성은 보다 부피가 크고 부풀어 오르는 중앙 부분으로부터 형성되었다. 토성과 목성은 앙고나로부터 유실된 대부분의 물질을 초기에 강력한 중력 작용으로 흡수하였으며, 그것들의 주위를 돌고 있는 어떤 위성들의 역행 운동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57:5.10 (656.6) 과열된 태양 기체의 거대한 기둥 한가운데로부터 생성된 토성과 목성은 매우 높은 열을 간직한 태양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밝은 빛을 발하였고 많은 양의 열을 내뿜었다; 그것들은 실체 안에서, 분리된 공간체로 형성된 후에 잠시 동안 제2의 태양 역할을 하였다. 태양계 안에서 가장 큰 이들 두 행성들은 오늘날까지도 기체 상태가 가장 많이 남아있으며, 아직도 완벽한 응축이나 응결을 이룰 정도로 냉각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57:5.11 (656.7) 기체로부터 응축된 다른 10개의 행성들의 핵들은 곧 응결 상태에 도달하였으며 가까운 공간에서 돌고 있는 운석들을 점점 더 많이 끌어당기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태양계의 행성들은 이중적인 기원을 갖게 되었는데; 기체로부터 응축된 핵과, 나중에 엄청난 양의 운석들을 흡수함으로써 증강된 부분이다. 그것들은 아직도 여전히

운석들을 흡수하고 있지만, 숫자에 있어서는 크게 줄어들었다.

57:5.12 (657.1) 행성들이 태양의 회전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면 모체가 되는 태양의 적도 평면 위에서 태양 주위를 돌아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것들은 오히려 태양의 적도 평면과 적지 않은 각도가 존재되고 있는 앙고나의 태양 분출 평면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57:5.13 (657.2) 앙고나가 태양의 물질 중 어떤 것도 끌어당기지 못하는 동안, 태양은 때때로 접근해 오는 우주 체계의 물질들 중 일부를 끌어 당겨서 태양계 행성들에게 덧붙여 줌으로써 변형을 가져오게 하였다. 앙고나의 강한 중력장으로 인하여, 그것의 영향을 받는 행성 무리들은 거대한 흑암체로부터 상당한 거리에서 궤도를 그리며 돌고 있다; 태양계의 기원이 되는 물질의 분출 직후에, 그리고 앙고나가 아직 태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안, 앙고나 체계의 주요 행성들 중에서 3개가 덩어리 모양의 최초의 태양계에 너무 근접하여 돌았기 때문에, 태양계의 중력 작용은 더욱 증강되어 이들 세 행성들로 하여금

앙고나의 중력 한계를 벗어나 영구히 떨어져 나가서 우주에 떠돌아다니도록 하기에 충분하였다.

57:5.14 (657.3) 태양으로부터 분출된 태양계의 물질 전부는 기원적으로는 똑같은 방향의 궤도회전 방향을 자질로서 부여받았으며, 세 개의 외부 공간체가 침입하지 않았다면, 모든 태양계 물체들은 여전히 궤도운동에서의 같은 방향을 유지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일어난 바와 같이, 3개의 앙고나 종속체의 영향이 외부에서 방향에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기세로, 창발하고 있는 태양계에 투입되었으며, 그 결과로 역행 운동이 나타났다. 어떤 우주 체계든지, 역행 운동은 항상 우연한 현상이며, 외부 공간체의 충돌 효과의 결과로 나타낸다. 그러한 상충 작용이 항상 역행 운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기원을 갖는 물질을 포함하는 체계가 아닌 곳에서는 결코 역행이 일어나지 않는다.

제 6 장. 태양계 형성기—행성 형성 시기

57:6.1 (657.4) 태양계가 탄생된 후, 태양의 분출이 점차로 감소되는 현상이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났다. 500,000년 동안 태양으로부터 주변 우주 공간으로의 물질 분출량은 점점

더 감소되었다. 그러나 안정되지 못한 궤도를 도는 초기 기간 동안, 주변의 천체들이 태양에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 태양의 모체는 이러한 운석들 중 많은 부분을 재(再)흡수할 수 있었다.

57:6.2 (657.5) 태양 가까이에 있는 행성들의 회전 속도가 조수에 따른 마찰에 의해서 먼저 감소되었다. 그러한 중력 영향은 행성-축 회전 속도를 감소시키면서 행성 궤도가 안정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축의 회전이 멈출 때까지 행성이 언제나 점점 더 천천히 돌게 하였고, 행성의 반쪽 부분이 항상 태양 또는 더 큰 행성을 향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항상 똑같은 면을 유란시아 쪽으로 향하면서 돌고 있는 달이나 수성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57:6.3 (657.6) 달과 지구의 조수에 따른 마찰이 동등하게 되면, 지구도 한쪽 구면만이 달을 향하게 될 것이며, 매월과 날자가 거의 동일하게—약 47일 기간으로—될 것이다. 그러한 궤도 안정이 성립되면, 조수에 따른 마찰은 역작용으로 될 것이며, 달은 더 이상 지구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위성이 행성 쪽으로 점차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주 먼 훗날에 달은 지구로부터

약 11,000 마일의 거리까지 접근할 것이며, 지구의 중력 작용에 의해 달이 붕괴될 것이고, 이러한 조수-중력 폭발에 의해 달은 작은 입자들로 분쇄되어, 토성과 마찬가지로 고리 모양의 물질 띠를 이루거나 아니면 점차 운석으로 지구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57:6.4 (658.1) 만약에 공간체들의 크기와 비중이 비슷한 상태라면,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두 개의 공간체가 비중에 있어서는 비슷하나 크기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면, 작은 것이 큰 것 쪽으로 점점 더 접근한다면, 궤도 반경이 큰 천체 반지름의 2.5배에 도달하였을 때 작은 천체의 파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우주 안에서 큰 물체들 간의 충돌은 정말로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보다 작은 천체의 중력-조수의 폭발 현상은 흔히 있는 일이다.

57:6.5 (658.2) 유성들이 한꺼번에 많이 생기는 현상이 벌어지는 데, 이는 가까이 있는 비슷하지만 더욱 큰 공간체가 일으키는 조수적인 중력으로 붕괴되는, 그러한 물질로 이루어진 큰 몸체의 단편이기 때문이다. 토성을 감싸고 있는 고리 모양의 띠들은 파괴된 위성의 단편들이다.

목성을 돌고 있는 달들 중 한 개가 현재 조수 파열 임계지역에 거의 도달되어 있으며, 수 백 만년 내에 행성에 의해 이끌리든지, 아니면 중력-조수 폭발이 발생할 것이다. 아주 먼 옛날에 태양계의 다섯 번째 행성이 불규칙적인 궤도를 돌다가 주기적으로 목성에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하여, 중력-조수 파열의 임계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신속히 단편화되었고, 지금-현재의 소행성 군(群)이 되었다.

^{57:6.6 (658.3)} 4,000,000,000년 전에, 목성과 토성 체계의 조직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그것들의 주위를 돌고 있는 달들을 제외하면 오늘날 관찰되는 모습과 매우 흡사하고, 지나간 수십억 년 동안 크기가 계속 커졌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과 위성들이 계속하여 운석을 흡수하는 결과로 여전히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57:6.7 (658.4)} 3,500,000,000년 전에, 다른 10개 행성들의 응축된 핵들이 잘 형성되었으며, 어떤 작은 위성들은 나중에 하나로 뭉쳐져서 지금-현재와 같은 보다 큰 달들이 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달들의 중심 부분이 온전한 모습을

갖추었다. 이 시기는 행성들이 연합되는 기간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57:6.8 (658.5) 3,000,000,000년 전에, 태양계는 오늘날과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거의 갖추게 되었다. 그 구성원들은 행성들과 그들의 위성들 위에 엄청난 비율로 떨어지는 운석들로 인하여 계속 커지게 되었다.

57:6.9 (658.6) 이 무렵에, 너희가 소속된 태양계가 네바돈의 물질 등록 장소에 기재되었고 그 이름은 몬마시아였다.

57:6.10 (658.7) 2,500,000,000년 전에, 행성들은 거대한 크기로 성장하였다. 유란시아는 현재 부피의 10분의 1 크기에 해당되는 잘 발전된 구체였으며, 증가되는 운석들로 인하여 여전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었다.

57:6.11 (658.8) 이러한 모든 엄청난 활동은 유란시아에 속한 진화 세계를 형성하는 자연적인 과정의 일부분이며, 생명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험을 하도록 준비된 그러한 공간의 물리적인 진화의 시작을 위해 무대 장치를 설치하는 천체적인 준비 과정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제 7 장. 운석 시대—화산 폭발기 원시 행성 환경

57:7.1 (658.9) 이러한 초기 시대에 두루, 태양계의 공간 구역들에는 분열과 응축의 과정을 거치는 작은 천체(天體)들이 무리를 짓고 있었으며, 연소 작용에 의해서 지구를 보호하는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않은 가운데 분쇄된 공간체들이 직접 유란시아의 표면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끊임없는 충격에 의해서 행성 표면은 다소 가열된 상태로 지속되었고, 지구가 커짐에 따라 중력 작용도 더욱 증가되면서 철과 같은 무거운 성분이 점점 더 행성의 중심부를 향하여 가라앉히도록 영향을 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57:7.2 (659.1) 2,000,000,000년 전에, 지구는 뚜렷하게 달을 능가하게 되었다. 위성보다 행성이 항상 더 크기는 하였지만, 엄청나게 많은 공간체 조각들이 지구에 흡수된 이 시기까지, 크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 이 무렵에 유란시아는 현재 크기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였으며, 가열된 안쪽 부분과 냉각된 표면 사이의 내부적 원소 분리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한 원시적 대기 환경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크기에 도달하였다.

57:7.3 (659.2) 명확한 화산 활동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지구의 내부 열은, 방사능을 갖거나 아니면 아주 무거운 원소들이 운석들에 의해서 우주로부터 옮겨져 점점 더 깊이 묻힘으로써 계속 증강되었다. 이러한 방사성이 있는 원소들에 대한 연구는 유란시아의 표면이 10억 년 이상 되었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듐 측정법은 행성의 생성 년대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데 있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가장 믿을만한 시간 계산 방법이기도 하지만, 너희가 정밀하게 조사하는 방사성 물질들은 모두 지구 표면으로부터 채취되므로 이 원소들이 비교적 최근에 획득되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한 측정 결과들은 모두 너무 짧게 나타나게 된다.

57:7.4 (659.3) 1,500,000,000년 전에, 지구는 현재 크기의 3분의 2에 달하였으며, 반면에 달은 현재의 부피와 거의 동일한 크기를 갖게 되었다. 지구는 달보다 빠른 속도로 커졌기 때문에 그것의 위성이 기원적으로 갖고 있었던 미세한 양의 대기를 서서히 흡수하기 시작하였다.

57:7.5 (659.4) 이 때 화산 활동이 최고점에 달하게 되었다. 지구 전체는 마치 불타는 지옥처럼 되어, 표면은 무거운 금속

성분들이 중심부로 가라앉기 전의 초기의 용암 상태와 흡사하였다. 이것이 화산기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비교적 가벼운 화강암으로 구성된 지표면은 점차적으로 형태를 갖추어 나갔다. 장차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무대가 설치되고 있었다.

57:7.6 (659.5) 원시적인 지구 환경이 서서히 진화되어 갔으며, 이제는 어느 정도의 수증기와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염화수소 등을 함유하게 되었지만, 유리(遊離) 질소와 유리 산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화산 활동기의 지구 환경의 상태는 하나의 어수선했던 모습이였다. 여러 가지 기체들 외에, 엄청난 양의 화산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고, 공기 띠가 충분히 형성되자 지구 표면 위에 끊임없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무거운 운석들로부터 산화 물질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한 운석 산화 작용은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거의 모두 소모하였으며, 운석이 떨어지는 속도는 여전히 엄청난 것이었다.

57:7.7 (659.6) 이윽고, 대기 상태가 더욱 안정되었고 지구의 가열된 바위 표면 위에 비가 떨어지기 시작할 정도로 충분히 냉각되었다. 유란시아는 수천 년 동안 한 개의

거대하고 연속적인 증기 막으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태양은 지구 표면에 전혀 비쳐지지 못하였다.

57:7.8 (659.7) 대기 속에 있던 많은 탄소 원자가 흡수되어 지표층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여러 가지 금속의 탄산염을 형성하였다. 그 이후 비옥한 토질을 만드는 초기 지구 형성기에, 훨씬 더 많은 양의 탄소 기체가 소모되었다.

57:7.9 (660.1) 이어지는 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용암 분출과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운석들로 말미암아 공기 속에 있던 산소가 거의 전부 소모되기에 이르렀다. 원시적인 바다가 곧 나타나게 되는 초기 퇴적물들 속에도 색깔이 있는 암석이나 이판암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바다가 나타난 후 오랫동안, 대기 속에는 실질적으로 유리 산소가 거의 없었다; 현저한 양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나중에 해초들과 기타 여러 형태의 채소들에 의해서 생성되었을 때였다.

57:7.10 (660.2) 화산 활동기의 원시적인 지구 대기는 운석 무리들의 충돌 현상으로부터 지구를 거의 잘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수많은 운석들이 그러한 공기층을 뚫고 들어올 수 있었으며 고체 덩어리로 지구 표면에

충돌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가 풍부한 다음 시대의 강력한 보호막을 뚫고 들어오기에 충분할 정도로 큰 운석들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제 8 장. 지구 표면의 안정 지진 활동기 바다와 최초의 대륙 세상

57:8.1 (660.3) 1,000,000,000년 전에, 유란시아 역사가 실재적으로 시작되었다. 지구는 현재의 크기에 거의 도달한 상태였다. 그리고 이 무렵에 네바돈의 물리 등록소에 기재되었으며 유란시아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57:8.2 (660.4) 끈임 없는 수증기의 응결과 함께, 대기는 지구 표면의 냉각되는 것을 촉진시켰다. 화산 활동은 일찍이 내부-열 압력과 지표면 응축을 균등화시켰으며; 화산 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냉각과 조절이 진행되는 신(新)시대가 나타나면서 지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57:8.3 (660.5) 유란시아의 실제적인 지질학적 역사는, 첫 번째의 바다를 형성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지구 표면을 냉각시킴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지구의 냉각된 표면 위에서 수증기의 응결이 일단 형성되기 시작된 후,

실질적으로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기간이 끝나게 되었을 때, 바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고, 평균 1마일이 넘는 깊이로 지구 전체를 덮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오늘날 볼 수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조수 현상이 시작되었지만, 원시적인 이 바다에는 소금기가 없었다; 지구를 뒤덮은 물은 실천적으로 민물과 같은 상태였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염소는 여러 종류의 금속 성분과 합쳐져 있었으나, 수소와 연합함으로써 이러한 물이 약한 산성을 띄우도록 하기에 충분하였다.

^{57:8.4 (660.6)} 아득히 먼 이 시대가 시작될 때, 유란시아는 하나의 물속에 갇힌 행성으로 관찰되었을 것이다. 나중에는, 더욱 두꺼운, 그리하여 농도가 더욱 짙어진 용암이, 현재 태평양을 이루고 있는 지역의 밑바닥으로 흘러 나왔으며, 표면이 물로 덮여 있는 이 지역은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되었다. 점점 더 두꺼워지는 지층의 평형 작용에 대한 보상하는 조절 현상으로 첫 번째의 거대한 대륙이 지구 전체를 덮은 바다로부터 떠올랐다.

^{57:8.5 (660.7)} 950,000,000년 전에, 유란시아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과 하나로 이루어진 물, 태평양으로 구성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화산 활동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으며, 지진 활동은 빈번하고도 맹렬하게 지속되었다. 운석들이 계속하여 지구에 떨어졌지만, 크기와 빈도가 계속 줄어들었다. 대기는 투명하게 되었지만,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여전히 높은 상태였다. 지구 표면은 점점 더 안정되어 갔다.

57:8.6 (660.8) 유란시아가 행성 운영에 관하여 사타니아의 체계에 배정되고 놀라시아텍의 생명 등록소에 기록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미가엘이 필사자 증여에서의 엄청난 사업에 착수되고, 유란시아가 지역적으로 “십자가의 세계”로서 알려지게 만든 그런 체험에 참여하게 될 행성으로 운명되는, 보잘것없는 작은 구체의 관리-행정적 승인이 시작되었다.

57:8.7 (661.1) 900,000,000년 전에, 행성을 조사하도록 예루셈에서 파견되고, 생명-실험 기지를 위해 적당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보고하도록 한, 사타니아의 첫 번째 경찰대가 유란시아에 도착하였다. 이 위원회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생명운반자, 라노난텍 아들, 멜기세덱, 세라핌천사, 그리고 행성의 조직과 관리-행정의 초기

시절과 관련하여 할일이 있는 또 다른 천상(天上)의 생명 계층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57:8.8 (661.2) 행성에서의 수고스러운 조사를 마친 후에, 이 위원회는 예루셈으로 돌아갔으며, 체계 주권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고하면서, 유란시아를 생명-실험 등록부에 올리도록 추천하였다. 따라서 너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예루셈에 하나의 십진법 소수의 행성으로 등록되었고, 생명운반자들은 나중에 그들이 생명 이주와 이식 명령을 가지고 도착하였을 때, 그들에게 기계적, 화학적, 그리고 전기적 활성화법으로 새로운 원형들을 제정할 수 있는 허가가 내릴 것이라는 통고를 받았다.

57:8.9 (661.3) 행성 업무를 위한 준비가 12명의 혼합된 예루셈 위원회에 의해서 완료되고 에덴시아의 70인 행성 위원회에 의해서 인가된 것은 물론이었다. 생명운반자들의 자문 조언자들에 의해 제안된 이 계획들이 구원자별에서 최종적인 허락을 받았다. 그 직후에 네바돈의 소식통들은, 생명운반자들이 네바돈 생명 원형들의 사타니아 유형으로 확대하고 개선하도록

계획된 60번째의 실험을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 유란시아가 도달하였음을 공표하였다.

57:8.10 (661.4) 우주 방송으로 네바돈 전체에 곧 바로 유란시아가 처음 인지되었으며, 충만한 우주 지위가 수여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초우주의 대구역과 소구역 본부 행성들의 기록소에 등록되었다;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유란시아는 유버사의 행성-생명 등록소에 기재되었다.

57:8.11 (661.5) 이 기간 전체의 특성은 빈번하고 격렬한 폭풍우로 특징 지워졌다. 초기에 지구의 지각 부분은 연속적인 유동 상태에 있었다. 냉각된 표면은 엄청난 양의 용암 분출로 인하여 변형되었다. 지구 표면의 어느 곳에서도 최초의 지구의 지각 부분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 지구 전체는 깊은 곳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번 흘러나온 용암과 혼합되었고, 초기에 지구 전체를 덮었던 바다에서 나중에 퇴적된 물질들과 뒤섞였다.

57:8.12 (661.6) 세계의 어느 지표면에도, 캐나다 북동쪽 허드슨 만(灣) 주변보다도 더, 고대의 해양-이전에 생긴 암반의 변화된 흔적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화강암이 용기된 이

광대한 지역은 해양-이전 시대에 속하는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의 암반층들은 가열되고 휘어졌으며 뒤틀려졌고 위쪽으로 주름이 잡혔으며 이러한 뒤틀림의 변형 과정을 여러 번 거치게 되었다.

57:8.13 (661.7) 해양기에 두루, 화석이 없는 성층암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지층이 이 고대해양의 바닥에 퇴적되어갔다. (화학적인 침전의 결과로도 석회암이 형성될 수 있다; 오래된 석회암 전체가 해양 생물체의 퇴적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고대에 형성된 이러한 암반 속에는 생명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중에 일어난 홍수기의 퇴적물이 보다 오래된 이러한 전(前)-생명체 지층과 뒤섞이지 않은 곳에서는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다.

57:8.14 (662.1) 초기의 지구의 지각은 매우 불안정하였지만, 산들이 형성되는 과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지구는 형태를 갖추면서 중력 작용에 의해서 응축 현상이 일어났다. 산들은 응축되는 부분에서 냉각된 지층의 붕괴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빗물과 중력 그리고 침식 작용의 결과로 나중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57:8.15 (662.2) 이 시기에 나타난 거대한 대륙은 지구 표면의 10% 정도에 이를 때까지 계속 확대되었다. 대륙이 물 위로 알맞게 떠오를 때까지 심각한 지진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들은 일단 시작되자,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여러 시대 동안 격렬하게 발생되었다. 수백만 년 동안 지진 작용이 감소되었지만, 유란시아에는 아직도 하루 평균 15번 정도로 발생되고 있다.

57:8.16 (662.3) 850,000,000년 전에, 지구의 지각의 실제적인 최초의 안정기가 시작되었다. 보다 무거운 금속 성분의 대부분은 지구 중심부로 들어갔으며; 냉각된 지각은 이전 시대에 일어났던 거대한 정도의 함몰 현상이 멈추게 되었다. 보다 무거운 해양 지대와 대륙 형성 사이에 보다 안정된 균형이 이루어졌다. 하부 지표의 용암대 유동은 거의 지구 전체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냉각과 응축 그리고 표면적인 변형에 기인된 불안정을 보상하고 안정화시켰다.

57:8.17 (662.4) 화산 폭발과 지진 현상의 크기와 빈도가 계속적으로 줄어들었다. 대기에 있던 화산 먼지들과

수증기들이 없어졌지만, 이산화탄소의 함유량은 여전히 높은 상태에 있었다.

57:8.18 (662.5) 땅 속과 공기 중의 전기적 교란 현상도 역시 점차 감소되었다. 지구의 지각을 다양화시키고, 특정한 우주-에너지들로부터 지구를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는 합성 원소들이 용암 분출로 말미암아 지구 표면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지구 에너지 통제가 더욱 용이하도록 만들었으며, 자기장 극점(極點)들의 기능에 의해서 노출되는 것처럼 그것의 흐름을 더욱 규제하도록 하였다.

57:8.19 (662.6) 800,000,000년 전에, 최초의 거대한 육지(陸地) 시대, 증가된 대륙 용기의 시대가 개시되는 것이 목격되었다.

57:8.20 (662.7) 지구 표면에서 물이 차지하는 부분이 줄어들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에는 세계적인 바다로 그리고 그 후에는 태평양으로 흘러들어서, 그 후에는 지구 표면의 10부의 9를 차지하는 모습이 되었다. 바다로 떨어진 운석들은 해저에 쌓이게 되었고, 운석들은 일반적으로 무거운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땅에 떨어진 것들은

대개 산화(酸化) 되었고, 이어서 침식 작용에 의해서 부식되었으며, 바다 속으로 씻겨 들어갔다. 그리하여 해저 부분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그 위에 물에 의한 하중이 더해졌으며 어떤 부분은 깊이가 10마일에 달하기도 하였다.

57:8.21 (662.8) 점점 증가되는 태평양의 밑으로 밀어내기는 대륙의 땅 덩어리를 위로 말아내도록 작용하였다. 유럽과 아프리카는 현재 오스트레일리아로 불리는 땅 덩어리와, 남-북 아메리카, 그리고 남극 대륙과 함께 태평양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 오르기 시작하였으며, 반면에 태평양 지층은 이에 대한 보상하는 조절 작용으로 더욱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 기간이 끝나면서, 지구 표면의 거의 3분의 1이 모두 하나의 대륙 몸체로, 땅을 이루었다.

57:8.22 (662.9) 육지의 고도가 이렇게 점차 높아지면서 지구상에 최초의 기후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땅의 용기와 광대한 구름 층 그리고 해양의 영향들이 기후 변동의 주요 요소였다. 땅이 최고로 용기되었을 때 아시아 지역 중심부의 고도는 거의 9마일에 이르렀다. 공중에는 많은 수분이 함유되어 있었고 이러한 높이 솟아오른 지역으로

떠돌아다니다가, 거대한 얼음 층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빙하기는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 광범한 지역의 땅이 수면으로 다시 나타나기까지에는 수억 년이 걸렸다.

57:8.23 (663.1) 750,000,000년 전에, 대륙이 쪼개지는 일이 처음으로 나타나 거대한 남-북 방향의 균열이 생기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해양의 물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린란드를 포함한 남-북 아메리카 대륙이 서쪽 편으로 이동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동-서 방향으로 길게 틈이 생겨나서 아프리카 대륙이 유럽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오스트레일리아와 태평양 군도(群島), 그리고 남극 대륙의 땅 덩어리들이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잘라져 나갔다.

57:8.24 (663.2) 700,000,000년 전에, 유란시아는 생명을 유지시키기에 적합한 원숙한 환경에 도달하였다. 대륙의 땅들은 계속하여 유동하였다; 해양의 물이 점점 더 육지 쪽으로 들어와서 마치 손가락 모양의 긴 바다가 형성되었으며, 얇은 물과 보호된 만(灣)은 해양 생명의 서식지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57:8.25 (663.3) 650,000,000년 전에, 땅 덩어리들은 더욱 분열되었고, 따라서 대륙의 바다들은 더욱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 물들은 유란시아 생명에게 없어서는 안 될 어느 정도의 소금기를 빠른 속도로 흡수하게 되었다.

57:8.26 (663.4) 시대가 지나고 세기가 바뀔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양으로, 잘 보존된 돌 기록 판들이 뒤 이어서 발견되는 것처럼, 유란시아에 대한 삶의 기록이 퇴적되어 있는 것은 이들 바다와 이어지는 바다들이었다. 고대에 있었던 이러한 내륙의 바다들은 정말로 진화의 요람이었다.

57:8.27 (663.5) [기원적인 유란시아 무리단의 일원이었으며 현재는 거주하는 관찰자인, 생명운반자에 의해서 제시되었음]

제 58 편 유란시아의 생명 정착

58:0.1 (664.1) 사타니아 전체에서, 생명체-변형 행성인 유란시아와 비슷한 세계는 61개 밖에 없다.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 대부분은 이미 확정된 기법에 의해서 거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한 구체에서 생명운반자들은 생명 이식을 위한 그들의 계획에 있어서 거의 여유롭게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세계는 십진법 소수의 행성으로 지정되고, 생명운반자들의 특별 등록에 배정 된다; 그러한 행성에서 우리는 생명의 표준 우주

유형을 변형시키거나, 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어떤 생명 실험을 수행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제 1 장. 물리적 생명의 선행 조건

58:1.1 (664.2) 600,000,000년 전에, 생명운반자들 위원회가 예루셈으로부터 파견되어 유란시아에 도착하였으며, 사타니아 체계의 606번의 세상에 생명체를 태동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물리적인 조건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사타니아에서 네바돈 생명 원형틀을 전수하는 606번째 체험이었으며, 지역우주의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생명 설계에 변화를 일으키고 변형을 시도하는 60번째 기회였다

58:1.2 (664.3) 구체가 진화 순환주기를 개시하기에 알맞은 환경이 성숙되기 전에는 생명운반자가 생명을 전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행성의 물리적인 진보에 의해서 유지되고 수용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생명 발전을 준비할 수도 없다.

58:1.3 (664.4) 사타니아의 생명운반자들은 생명의 염화나트륨 원형틀을 구체적으로 투사 하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이 충분한 소금기를 갖게 되기 전에는 그것을 심는 단계가 진행될 수 없었다. 유란시아 유형의 원형질은 적당한 소금기의 용액 속에서만 기능할 수 있다. 조상이 되는—식물과 동물—모든 생명은 소금-용해 서식지에서 진화되었다. 그리고 비록 매우 고등의 유기체 육지동물도 바로 이 동일한 본질적 소금용해액이 혈류로서 그들의 몸체를 자유롭게 적시어 씻기며, 글자그대로 잠기어, 모든 각각의 미세 세포가 이 '소금물의 심연'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들 몸체에 두루 순환하지 않으면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58:1.4 (664.5) 너희의 원시 조상들은 짠 바다에서 자유롭게 순환하였다; 오늘날에는, 바로 이 바다와 같은 소금 용해가 너희의 몸속에서 자유롭게 순환하고, 최초의 살아있는 세포들의 첫 원형질 반응이 행성에서 기능하도록 자극을 주었던 소금물과 비교될 수 있는 모든 본질적인 요소들의 화학적인 용액으로 각각의 독립된 세포를 적셔주고 있다.

58:1.5 (664.6) 그러나 이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유란시아는 모든 면에서 해양 생명의 초기 형태들을 부양(扶養)하기에 알맞은 상태로 진화되어 가고 있었다. 지구와 가까운

공간의 지역들에서, 우리가 결정하였던 것이 전개되는 물리적 환경—지상과 공간의—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발전이 속도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러한 생명 형태들을 수립할 수 있는 미래의 시도들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58:1.6 (665.1) 그리고 나서 생명운반자들의 사타니아 위원회는 대륙 땅 덩어리가 더 나뉘어져서, 실재적인 생명 이식이 시작되기 전에, 더 많은 내륙 바다와 보호된 만(灣)들이 잘 제공되는 때를 기다리기로 하고 예루셈으로 돌아갔다.

58:1.7 (665.2) 생명이 해양으로부터 기원된 행성에서 생명 이식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들은 수많은 내륙의 바다들, 끝없이 펼쳐진 수심이 얇은 해안선과 보호된 만(灣)들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지구상의 물들의 바로 그와 같은 분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고대의 이러한 내륙 해(海)들의 깊이는 500 내지 600피트를 거의 넘지 않았으며, 태양 광선은 해수 600피트 이상에까지 미칠 수 있었다.

58:1.8 (665.3) 원시 식물 생명이 땅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것은 바로 그러한 후대(後代)의 온화하고 균일한

기후를 갖는 해안선에서였다. 그곳에 대기 속에 있는 높은 농도의 탄소는 새로운 땅에 신속하고 무성한 성장의 다양한 생명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대기 상태가 식물의 성장에 이상적이지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어떤 동물도 지표면에 살 수 없었으며 사람은 더욱 그러하였다.

제 2 장. 유란시아의 대기(大氣)

58:2.1 (665.4) 행성의 대기는 태양의 전체 빛 방출 중에서 약 2십억 분의 일을 지구 속으로 들어오게 한다. 만약에 북 아메리카에 비치는 광선에 대하여 시간당 1킬로와트마다 2센트의 비율로 돈을 매긴다면, 연간 사용량에 대한 비용은 약 80 경(京)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태양 광선에 대하여 시카고 시에 부과될 비용은 하루에 1억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태양으로부터 다른 형태의 에너지들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빛만이 너희의 대기에 끼치는 태양의 기여가 아니다. 인간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범위보다 높거나 낮은 파장들을 포함하여 광대한 태양 에너지들이 유란시아에 내려 쏘이고 있다

58:2.2 (665.5) 스펙트럼의 자외선 맨 끝 부분에 있는 태양 방사능 물질의 대부분은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러한 짧은 파장들의 대부분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약 10마일 상공 전역에 존재하며 그리고 다시 외부 공간으로 10마일 확장되는 오존층에 의해서 흡수되며, 지구 표면에 영향을 끼치는 오존은 오직 10분의 1인치 두께에 해당되는 층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소량이고 겉보기에 별로 대단치 않은 이러한 오존이 태양광선 속에 있는 위험스럽고 파괴적인 자외선 방사능 물질로부터 유란시아 거주민들을 보호한다. 그러나 이 오존층이 조금만 더 두터워도, 너희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고 가장 필수적인 비타민들 중 하나의 근원이 되며 현재 지구 표면에 쏘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자외선이 차단될 것이다.

58:2.3 (665.6) 그러나 일부 상상력이 빈약한 너희들 필사 기계론자들은 아직도 물질 창조와 인간 진화를 하나의 우연한 현상으로 보기를 고집한다. 유란시아 중도자들은 우연한 현상적 법칙과 양립될 수 없다고 여기는 5만 가지 이상의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사실들을 수집해 왔고, 이것들이 물질 창조 안에 지능적인 목적의 현존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권역 밖에서 발견하고 있는, 계속하여 물질적 조화우주의 계획, 창조 그리고 유지 안에 들어있는 마음의 현존을 증명하게 만드는, 10만 가지 이상의 목록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58:2.4 (666.1) 태양은 너희들에게 진실 그대로 치명적인 광선을 쏟아내고 있고, 유란시아에서의 너희의 쾌적한 삶은, 독특한 이 오존층의 작용과 유사한, 겉으로 보기에 유연하게 보이는 40가지 이상의 보호 작용들의 “우연한” 영향에 기인되고 있다.

58:2.5 (666.2) 밤에 대기의 “담요” 효과가 없었다면, 방열 작용으로 인하여 열이 너무도 신속하게 발산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열 공급이 없이는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58:2.6 (666.3) 지구 대기의 아래쪽 5내지 6마일은 대류권이다; 이곳은 기상 현상을 일으키는 바람과 공기 흐름의 지역이다. 이 지역 위의 아래가 내부 전리층이고 그 위에는 성층권이다. 지구 표면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6내지 8마일에 이를 때까지 온도가 일정하게 하강하며, 가장

높은 곳의 온도는 화씨로 약 영하 70도에 이른다. 화씨 영하 65내지 70도에 이르는 이런 온도는 그 다음 40마일을 올라가는 동안 변화가 없으며; 온도가 일정한 이 구역이 성층권이다. 45내지 50마일의 고도에서, 온도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고, 온도 상승은 오로라 현상이 있는 높이까지 계속되어 화씨로 1,200도까지 올라가며, 이러한 강한 열로 인하여 산소가 이온화 된다. 그러나 이렇게 희박한 대기에의 온도는 지구 표면에서 느낄 수 있는 열과 거의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전체 대기의 반 정도가 지표면으로부터 3마일 속에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지구 대기의 높이—약 400마일—는 가장 높은 오로라 유광(流光)에 의해서 식별된다.

58:2.7 (666.4) 오로라 현상은 태양 흑점, 지구의 열대성 폭풍우가 발생하는 것처럼 태양의 적도 위와 아래에서 반대 방향으로 소용돌이치는 태양의 폭풍과 직접 관련된다. 그러한 대기권 불안은 적도의 위와 아래에서 생겼을 때 반대 방향으로 소용돌이치게 된다.

58:2.8 (666.5) 빛의 파장을 변경시키는 태양 흑점들의 힘은 이러한 태양 소용돌이 중심부들이 막강한 자력(磁力)처럼

기능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한 자장(磁場)은 태양 흑점 분화구들로부터 지구 바깥쪽 대기로 대전된 입자들을 뿜어내며, 그곳에서 그것들의 이온화 작용이 그러한 장관의 오로라 현상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태양 흑점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혹은 그 직후에—그 점들이 보다 일반적으로 적도 부근에 위치하였을 때, 가장 큰 오로라 현상이 나타난다.

58:2.9 (666.6) 나침반도 이러한 태양 작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가 뜰 때는 약간 동쪽으로 치우치고 해가 질 무렵에는 약간 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매일 일어나는 것이지만, 태양 흑점 주기가 높은 곳에 있을 때에는 나침반의 이러한 편차는 거의 두 배에 이르게 된다. 날마다 일어나는 나침반의 이러한 변화는, 태양 광선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층부 대기의 증가된 이온화 현상에 대한 반응이다.

58:2.10 (666.7) 너희가 하고 있는 장파 그리고 단파 방송이 먼 거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유는 성층권 밖에 있는 서로 다른 정도로 충전된 두 개의 끌어들이는 구역이 현존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고 있는 방송 상태는 이러한 외부

전리층들의 구역에서 가끔 거세게 일어나는 심한 폭풍우에 의해서 때로 교란되기도 한다.

제 3 장. 공간 환경

58:3.1 (666.8) 우주 물질화의 초기 기간 동안에, 공간 구역들은 거대한 수소 구름들, 먼 공간에 두루 많은 구역들을 지금도 특징짓는 그렇게 광대한 먼지 군(群)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강렬한 태양들이 파괴하고 복사 에너지처럼 분산시킨 유기체 물질의 대부분은 기원적으로 초기에 나타난 공간의 수소 구름들 속에서 형성되었다. 어떤 특별한 조건 아래에서, 보다 큰 수소 덩어리들의 핵심부에 원자 분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원자 생성과 분열의 모든 현상은, 극도로 가열된 성운에서 일어날 때, 복사 에너지의 짧은 공간 광선들의 분출되는 밀물의 창발이 뒤따른다. 동반하는 이러한 다양한 방사들은 유란시아에서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공간-에너지 형태이다.

58:3.2 (667.1) 우주 공간의 이 단파 방사선 에너지 충전은 유기체 공간 권역들 속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복사 에너지의 형태들보다 400배나 더 크다. 짧은 공간 복사선들의 출력이, 타오르는 성운으로부터, 팽팽한 전기장으로부터,

외부 공간으로부터, 또는 광대한 수소 먼지 구름들로부터 오던지, 온도와 중력 그리고 전기적 압력의 파동과 그것들 속에 갑자기 일어나는 긴장의 변화들에 의해서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변화된다.

58:3.3 (667.2) 이러한 공간 광선들의 기원에서 생겨나는 것들은 회전하는 물질의 궤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많은 조화우주 발생사건들에 의해서 결정되며, 변형된 원으로부터 극심한 타원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동일한 물리적 지대 안에서조차, 보다 큰 물질의 운동과는 간혹 반대 방향으로 전자의 회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리적인 조건들 역시 크게 변경될 수 있다.

58:3.4 (667.3) 광대한 수소 구름들은 진실 그대로 조화우주 화학적 실험장이며, 진화하는 에너지와 변형되는 물질에 대한 모든 현상들을 거두어둔다. 또한 거대한 에너지 활동들이, 매우 빈번하게 겹쳐짐으로써 광범위하게 뒤섞이는 거대한 운성들의 변두리에 있는 가스들 속에서 발생된다. 그러나 이 거대하고 널리 퍼진 공간의 에너지 활동들은 유기적 생명—살아있는 물체와 존재들의 세포원형질—에 작은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공간의

이러한 에너지 상태들은 생명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복사 에너지의 보다 긴 방사선들의 어떤 것들이 그런 것처럼 세포 원형질의 선천적인 요소들의 뒤이어 일어나는 변형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생명 운반자들이 이식한 생명은 우주 에너지의 짧은 공간 방사 광선들의 이 엄청난 홍수에 모두 충만한 저항력을 갖고 있다

58:3.5 (667.4) 모든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 조화우주 조건들은, 생명운반자들이 유란시아에 생명 형성을 실재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전에, 적당한 상태로 진화되어야만 하였다.

제 4 장. 생명체 태동기

58:4.1 (667.5) 우리가 생명운반자라고 불리는 것 때문에 너희가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여러 행성들에게 생명을 운반해 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유란시아에는 어떤 생명도 가져오지 않았다. 유란시아의 생명은 독특한 것이며 지구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이곳 구체는 생명-변형의 세계이다; 이곳에 나타난 모든 생명은 바로 이 지구 위에서 우리가 형성하였다; 유란시아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실존하는 세계는 사타니아의 전 지역에 전혀 실존하지 않으며, 네바돈 전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58:4.2 (667.6) 550,000,000년 전에, 생명운반자 무리단은 유란시아로 돌아왔다. 우리는 영적인 힘들과 초(超)물리적 기체들과 협력하여, 이 세계에 대한 기원적인 생명 원형틀들을 조직하고 창시하였으며 구체의 쾌적한 물속에 그것들을 심었다. 행성영주인 칼리가스티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성 생명은 (가외행성 개인성들은 제외하고) 우리들의 기원적이고 동일하며 동시적인 세 개의 해양-생명 이식들에 의해 기원되었다. 이러한 세 개의 생명 이식들은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중앙 혹은 유라시아-아프리카, 동부 혹은 오스트랄라시아 지역, 그리고 그린란드와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하는 서부 지역이다.

58:4.3 (668.1) 500,000,000년 전에, 원시 해양 식물 생명이 유란시아에 성공적으로 태동되었다. 남-북 아메리카를 위시하여 그린란드와 북극 대륙이 서쪽으로 오랫동안 서서히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아프리카는 동쪽과 서쪽에

바다 골짜기, 본래의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지중해 분지를 조성하면서 약간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남극 대륙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태평양의 섬들에 의해서 그 흔적을 알 수 있는 대륙이 남동쪽으로 떨어져 나갔고 그 날 이후로 멀리 떠내려갔다.

58:4.4 (668.2) 우리는 갈라지고 있는 대륙의 땅 덩어리의 동-서로 벌어진 틈새에 있는 중앙 바다의 아늑한 열대 기후의 만(灣)들 속에 해양 생명의 원시 형태를 심었다. 세 개의 해양-생명 이식을 만든 우리들의 목적은 이 생명을, 각각의 거대한 땅 덩어리들이 나중에 분리되어 나갈 때, 함께 그 따듯한 바닷물 안에 확실하게 가져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땅의 생명이 태동되는 후기 시대에, 커다란 대양의 물이 표류하고 있는 이들 대륙 땅 덩어리들을 서로 분리시킬 것으로 예견하였다.

제 5 장. 대륙의 이동

58:5.1 (668.3) 대륙의 땅의 표류는 계속되었다. 지구의 핵심부는 입방 인치당 거의 25,000톤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져서 중력에 의한 엄청난 압력 때문에, 쇠처럼 농도가 짙어지고 단단해졌으며, 내부 깊숙한 곳은 그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굉장히 가열되어있다. 지표면으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온도는 점차 증가하며 중심 부분은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약간 더 높다.

58:5.2 (668.4) 지구 덩어리의 바깥표면 1,000마일은 주로 다양한 종류의 바위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밑으로는 보다 조밀하고 무거운 금속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기 그리고 대기권이 생기기 전의 시대 전체 동안에는 세계는 뜨겁게 가열되고 녹아 있어서 거의 액체 상태에 있었으므로 무거운 금속 성분들이 안쪽으로 가라앉았다. 오늘날 표면 근처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고대의 화산 활동에 의해서 분출된 것들, 나중에 대규모의 용암으로 흘러나온 것들, 그리고 그보다 더 후기에 운석들에 의해 쌓인 것이다.

58:5.3 (668.5) 지표층은 약 40마일의 두께로 되어 있다.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 부분은 다양한 두께의 녹아 있는 현무암 바다 바로 위에 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으며, 바다는 녹아있는 용암으로 된 유동하는 층으로써, 높은 압력 아래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변화하는 지구 압력을 균등하게 유지하여 지구 표면을 안정화하기 위해 항상 이동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58:5.4 (668.6)

오늘날에도 대륙들은 녹아있는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부드럽고 폭신평신했던 이 바다 위에 여전히 떠 있다. 이러한 보호 환경이 아니었다면, 보다 심각한 지진들이 세상을 흔들어서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었을 것이다. 지진들은 화산 폭발에 의해서가 아니라 딱딱한 지표층이 미끄러지고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발생된다.

58:5.5 (668.7)

지구 지각의 용암층이 냉각되면 화강암이 된다. 유란시아의 평균 비중은 물 비중의 5.5배보다 약간 더 무거우며; 화강암의 비중은 물 비중의 3배보다 조금 가볍다. 지구 핵심부는 물 비중의 12배에 해당된다.

58:5.6 (668.8)

바다 밑바닥은 땅 덩어리들보다 더 밀도가 높으며, 이것 때문에 물 위로 솟아나 있는 대륙들이 유지되는 것이다. 바다 밑바닥이 해수면 위로 돌출하게 되면, 그것들이 주로 현무암, 땅 위에 있는 화강암보다 훨씬 더 무거운 용암의 형태로 되어 있음이 발견된다. 다시 말해서, 대륙이 해저보다 가볍지 않다면, 중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땅 위로 올라오게 되겠지만, 그러한 현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58:5.7 (668.9) 또한 해양의 무게는 해저에 점점 더 센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기도하다. 보다 낮은 곳에 있지만 비교적 더 무거운 해저의 지층들은, 그 위에 있는 물의 무게를 더해진 보다 높은 곳에 있지만 보다 가벼운 대륙들의 무게와 비슷하다. 그러나 모든 대륙들은 해양 쪽으로 서서히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 해저 계층에서 대륙이 주는 압력은 평방 센티미터 당 약 550 킬로그램에 달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해저로부터 4,600미터로 솟아 있는 대륙이 가하는 압력이 될 것이다. 해저의 수압은 평방 센티미터 당 약 137 킬로그램에 불과하다. 이러한 압력 차이는 대륙이 해저 쪽으로 미끄러지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58:5.8 (669.1) 생명이 존재하기 이전 시대 동안에 해저의 침강은, 하나뿐이었던 대륙의 땅 덩어리를 밀어 올려서, 측면의 압력이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 주변이 비탈길로 미끄럽게 내려가, 둘러싸고 있는 태평양 바다의 물속에 들어가, 밑에 깔려있는 반쯤 끈적거리는 용암 위로 그렇게 미끄러지는 원인이 되는 높이로 밀어 올렸다. 이것이 대륙의 압력을 너무나 충분히 보상하였기 때문에 이때의 고대 아시아 대륙 동쪽연안에는 폭 넓은 균열이 발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동쪽 해안은 그 후로 계속,

인접한 해양 심해의 낭떠러지 위에 맴돌고 있고, 물속에 있는 무덤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위협을 받고 있다.

제 6 장. 과도기

58:6.1 (669.2) 450,000,000년 전에, 식물로부터 동물 생명으로의 변천이 발생했다. 이러한 변환은 아늑한 열대성 기후의 만(灣)과, 분리된 대륙들의 광대한 해변의 작은 늪의 얇은 물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모두 기원적인 생명 원형틀들 속에 선천적으로 있는 것인데, 점차적으로 나오게 되었다. 초기의 원시식물 형태의 생명과 후기의 잘 조직된 동물 유기체 사이에는 많은 변천 단계가 있었다. 오늘날에도 과도기 점액질이 잔존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식물이나 동물로 분류하기도 어렵다.

58:6.2 (669.3) 식물생명에서부터 동물생명에 이르기까지의 진화를 추적할 수 있더라도, 그리고 가장 단순한 형태로부터 가장 복잡하고 발전된 유기체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식물들과 동물들에 대한 점진적인 연속성을 발견하더라도, 너희는 동물계의 엄청난 분할들의 사이에 대한 연결 고리들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전 동물 유형의 가장 발전된 것과 인간 종족의 원시인사이의

연결 고리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소위 “잃어버린 연결 고리들”이라고 불리는 이것들은 언제까지나 잃어버린 상태로 남아있을 것인데, 그것은 이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58:6.3 (669.4) 시대가 바뀌면서 본질적으로 새로운 동물 생명체 종(種)들이 발생하였다. 그것들은 미세한 변화들이 점차적으로 누적된 결과로 진화된 것들이 아니다; 그들은 충만한-성장의 모습으로 그리고 새로운 계층의 생명으로 나타났으며, 갑자기 나타났다.

58:6.4 (669.5) 새로운 종족들과 다양한 계층의 생명 유기체들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전적으로 생물학적, 순전히 자연적인 것이다. 이러한 유전자 돌연변이에서 초자연적인 간섭은 전혀 관련되지 않는다.

58:6.5 (669.6) 해양의 적당한 정도의 소금기 속에서 동물 생명이 진화하였으며, 해양 생명의 동물 몸체 속으로 소금기의 물이 순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것이었다. 그러나 해양이 줄어들고 소금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지자, 똑같은 이들 동물들은 자신들 체액의 소금기를 줄이는 능력을 진화시켰으며, 이것은 마찬가지로,

소금기를 보존하는 독창적인 기법에 의해서 자신의 체액 속에 적당한 정도의 염화나트륨을 유지하는 능력을 습득하여 민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운 그러한 유기체들과도 같았다.

58:6.6 (669.7) 바위에-안겨있는 해양 생명체 화석들에 대한 연구는, 이들 원시 유기체들의 초창기 조절 투쟁을 제시한다. 식물들과 동물들은 이러한 조절 실험을 결코 그치지 않는다. 환경은 언제까지나 변화하고 있으며, 그리고 항상,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결코-끝남이 없는 이들 동요에 자신들을 적응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58:6.7 (670.1) 생명의 모든 새로운 계층들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적인 장치는 물리 법칙의 작용에 응답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마음 자질은 타고난 뇌의 수용 능력에 따른 보조 마음-영들의 증여이다. 마음은 물리적 진화가 아니라, 순전히 물리적이고 진화적인 성장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뇌의 수용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58:6.8 (670.2) 거의 끝없이 순환되는 획득과 손실, 조절과 재(再)조절을 통하여,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들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퇴보 또는 전진의 과정을 되풀이한다.

조화우주 합일을 달성하는 존재들은 존속되지만,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존재들은 도태된다.

제 7 장. 지질학상의 역사책

58:7.1 (670.3) 생명 태동기와 원생대 기간 동안 지구의 지각을 구성하였던 바위 덩어리들의 광대한 무리는 지금은 지구 표면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후대에 쌓인 모든 퇴적물의 아래로부터 솟아오를 때, 그곳에서는 오직 식물과 초기의 원시 동물 생명의 화석유물들만이 발견될 것이다. 더 오래된 물에 의해서 퇴적된 이 바위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그 후에 이루어진 지층들과 뒤섞였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이 초기 형태의 식물 생명들 중 일부분의 화석 유물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반면에 가장 높은 층에서는 초기 해양 동물 유기체의 보다 원시 형태들 일부가 간혹 발견될 수도 있다. 초기의 동물과 식물의 해양 생물체로 이루어진 화석이 들어있는 가장 오래된 이 성층암 지층들은 많은 곳에서 분화되지 않은 고대의 바위 위에서 직접 발견될 수 있다.

58:7.2 (670.4) 이 시기의 화석들 속에는 해초, 산호 모양의 식물들, 원시 원생동물 종류들, 그리고 스펀지처럼 생긴

변천기의 유기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초기의 바위 층 속에 그러한 화석들이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그것들의 퇴적기에 어느 곳에도 실존하지 않았음을 반드시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은 이러한 초기 시대에 두루 매우 희소하였고, 지구 표면으로 단지 서서히 나아갔을 뿐이다.

58:7.3 (670.5) 이 고대의 바위들이 현재 지구 표면에 있거나 표면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대륙 전체의 약 8분의 1에 걸쳐있다. 가장 오래된 성층암 지층인, 변천기에 이루어진 이 돌의 평균 두께는 약 1.5마일에 이른다. 어떤 지점에서는 고대의 이 바위 덩어리들이 4마일에 이르는 두께를 갖기도 하지만, 이 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대부분의 지층들은 후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58:7.4 (670.6) 북 아메리카에서는 원시 화석이 들어 있는 고대의 이 바위 지층이 동부와 중앙 지역 그리고 캐나다의 북부 지역의 지표면에 돌출 되어 있다. 또한 그곳에는 펜실베이니아와 고대의 애디론덱 산들로부터 시작하여 미시간과 위스콘신 그리고 미네소타를 거쳐 서쪽으로

뻗어 나간 이 바위 층으로 이루어진 동-서 방향의 간헐적인 산맥이 있다. 뉴햄프셔로부터 앨라배마로, 그리고 알래스카로부터 멕시코로 이어지는 다른 산맥들도 있다.

58:7.5 (670.7) 이 시대의 바위들이 세계 곳곳에 노출되어 있지만,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 그랜드 캐년과 슈퍼리어 호수 근처의 지역에 있는 바위들처럼 쉽게 확인되는 곳이 없으며, 그곳에서 이 원시 화석이 들어 있고 여러 층으로 존재하는 이 바위들은, 먼 옛날에 일어났던 용기와 지표면 변동을 증명한다.

58:7.6 (670.8) 껍질의 가장 오래된 화석이 들어 있는 지층인 이 암석층은 주름이 지고 겹쳐졌으며 지진으로 인한 용기와 초기의 화산 활동의 결과로 기괴한 모습으로 뒤틀어졌다. 이 시기의 용암 분출은 많은 철과 동 그리고 납을 지구 표면 가까이 가져왔다.

58:7.7 (670.9) 위스콘신에 있는 세인트 크로익스 계곡보다 더 생생하게 그러한 활동들이 보이는 장소는 이 지구 위에 거의 없다. 이 지역에서는 127회에 달하는 연속적인 땅 위로의 용암 분출과 이어지는 침수 현상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한 바위의 퇴적이 일어났었다. 대부분의 상층부

암반의 침전과 간헐적인 용암 분출이 오늘날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구조들의 밑바닥이 지구 속 깊은 곳에 묻혀있다 할지라도, 약 65-70개의 지나간 시대들의 층화(層化)된 기록들이 현재 밖으로 드러나 있다.

58:7.8 (671.1) 대부분의 땅이 해수면과 거의 동일하였던 이러한 초기 시대에, 여러 차례의 연속적인 침강과 융기가 발생되었다. 지구의 지각은 비교적 안정된 후기 시대에 막 접어들고 있었다. 초기 대륙의 표류의 굽이치는 현상들, 상승과 하강 작용들로 인하여 거대한 땅 덩어리들이 주기적으로 물에 잠겼다.

58:7.9 (671.2) 원시 해양 생명의 이 기간 동안, 광대한 지역의 대륙 해안선이 작게는 몇 피트에서 크게는 반마일에 이르기까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더 오래된 사암과 역암의 대부분은 이러한 고대의 해안선이 침전 퇴적을 보여준다. 이러한 초기 성층(成層)에 들어 있는 퇴적암들은 생명의 기원 훨씬 전, 지구 전역에 퍼진 해양의 시기에 형성된 지층들 바로 위에 놓여 있다.

58:7.10 (671.3) 이들 변천기 암반 퇴적의 상층의 일부에는 소량의 이판암이나 어두운 색깔의 점판암이 들어 있으며, 이것은 유기질 탄소의 현존을 의미하며, 계속된 석탄기 동안에 지구 위에 널리 퍼진 식물 생명 형태들의 조상이 실존하였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암석층 속에 있는 구리 성분의 대부분은 물의 침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어떤 것은 더 오래된 바위들 틈 속에서 발견되며, 고대의 보호된 해안선에 있던 완만한 늪지대의 물로부터 응축된 것이다. 북 아메리카와 유럽의 철광들은, 층을 이루지 않은 더 오래된 암석들 속에 그리고 생명 형성의 변환기에 층을 이룬 후대의 바위 속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퇴적층과 분출된 지층 속에 위치한다.

58:7.11 (671.4) 이 시대에 세상의 물 속 전역에 걸쳐서 생명의 분포가 있었음이 목격되고 있다; 해양 생명이 유란시아에 잘 자리를 잡게 되었다. 깊이가 얕은 광대한 내륙의 바다들 밑바닥은 풍부하고 울창하게 자라나는 식물들로 점차 가득 차게 되어가고, 반면에 해안선의 물에는 단순한 형태의 동물 생명들로 들끓고 있다.

58:7.12 (671.5) 모든 이 이야기는 지구 전체에 기록된 광대한 “암석 역사책”의 화석에서 생생하게 보이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들을 해독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기만 한다면, 거대한 이 생물지질학적 기록들 속에서 반드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고대의 해저 지층들 대부분은 현재 육지 위로 높이 솟아올라 있으며, 여러 시대에 걸쳐 퇴적된 지층들은 그 초기에 생명들이 어떻게 투쟁하며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준다. 너희들 중에 어떤 시인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흙도 한 때는 살아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로 맞는 말이다.

58:7.13 (671.6) [현재 지구에 거하고 있는 유란시아 생명운반자 무리단의 일원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59 편 유란시아의 해양-생명 시대

59:0.1 (672.1) 우리는 유란시아의 역사를 10억 년 전부터 계산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5단계의 시대로 구분 한다:

59:0.2 (672.2) 1. 전(前)-생명체기는 지구가 현재의 크기에 도달한 때로부터 생명이 태동되기 직전까지 약 4억 5천만 년에 해당되는 첫 번째 기간이다. 지구에 있는 연구자들은 이 기간을 시생대(始生代)라고 부르고 있다.

59:0.3 (672.3) 2. 생명 태동기는 그 다음부터 1억 5천만 년의 기간이다. 이 신(新)시대는 앞에 있는 전(前)생명체기 혹은 격변기와, 뒤에 있는 고도로 발달된 해양-생명 기간 사이에 들어 있다. 이 시대는 연구자들에게 원생대(原生代)라고 알려져 있다.

59:0.4 (672.4) 3. 해양-생명체기는 그 다음의 2억 5천만 년에 해당되며, 너희는 이 기간을 고생대(古生代)라고 알고 있다.

59:0.5 (672.5) 4. 초기 육지-생명체기는 그 다음 1억 년의 기간이며 중생대(中生代)로 알려져 있다.

59:0.6 (672.6) 5. 포유류기는 마지막 5천만년에 해당된다. 최근의 이 기간은 신생대(新生代)라고 알려져 있다.

59:0.7 (672.7) 위에서 보듯이 해양-생명 시대는 지구 역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기간은 여섯 개의 긴 기간들로 나뉠 수 있으며, 각각의 그 기간들은 지질학적 분야와 생물학적 권역 모두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정한 발전 단계를 이루는 특성을 보여준다.

59:0.8 (672.8) 이 기간이 시작될 때, 바다 밑바닥과 광대한 대륙붕들 그리고 해변가에 있는 수많은 분지들은 풍부한 식물들로 뒤덮여 있었다. 보다 단순하고 원시 형태의 동물 생명들이, 선행된 식물성 유기체들로부터 이미 발전되어 나타났으며, 초기 동물 유기체들은 많은 내륙 바다들이 원시 해양 생명으로 가득 찰 때까지 여러 땅 덩어리들의 광대한 해안선을 따라서 점차적으로 퍼져 나갔다. 이러한 초기의 유기체들은 껍질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화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은 이어지는 시대들 동안 매우 질서정연하게 조성된 생명-기록을 담고 있는 그 엄청난 “암석 역사책”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다.

59:0.9 (672.9) 북아메리카 대륙에는 해양-생명체기 전체의 화석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된 퇴적층들이 있다. 바로 그러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오래된 지층들은 지구 성장의 이러한 두 단계를 분명하게 구분시켜 주는 침식작용으로 인한 광대한 퇴적층들에 의해서, 앞에 있는 기간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기간과 구별되고 있다.

제 1 장. 얕은 바다 속의 초기 해양 생명—삼엽충 시대

59:1.1 (673.1) 비교적 고요한 이 기간이 지구 표면에 시작될 무렵에, 생명은 해양의 해안선과 여러 내륙 바다들에만 한정적으로 존재하였다; 육상 유기체의 형태는 아직 진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원시 해양 동물들이 성공적으로 태동되었고 다음 단계의 진화가 일어날 준비가 갖추어졌다. 아메바는 이러한 초기 단계의 동물 생명이 살아남아 있는 대표적인 예이며, 앞에 있는 변환기가 끝날 무렵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59:1.2 (673.2) 400,000,000년 전에, 식물성과 동물성의 해양 생명이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하게 되었다. 지구의 기후는 약간씩 더워졌고 더욱 안정된 상태가 되었다. 여러 대륙들 특히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해안선 전역이 침수되었다. 새로운 해양들이 나타났고, 전에 있던 침수 지역이 더욱 확대되었다.

59:1.3 (673.3) 이 때 식물류가 처음으로 땅 위로 상륙하였으며 해양이 아닌 다른 환경에 적응함에 있어서 곧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59:1.4 (673.4) 갑자기 그리고 단계적인 종자 변환 없이 최초의 다세포 동물들이 출현하였다. 삼엽충이 진화되어

나타났고, 오랫동안 바다를 뒤덮고 있었다. 해양 생명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기간은 삼엽충 시대였다.

59:1.5 (673.5) 이 기간 후반기에 북아메리카와 유럽 대부분이
바다 위로 솟아올랐다. 지구의 지각은 일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여러 산들 혹은 비교적 고지대의
땅들이, 서부 인도 지역과 남부 유럽에서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을 따라 융기하였다. 카리브 지역 전체가 매우 높이
솟아올랐다.

59:1.6 (673.6) 390,000,000년 전에도, 땅은 여전히 융기되었다.
동부와 서부 아메리카 그리고 서부 유럽 지역들에서는, 이
기간 동안 퇴적된 암석층들이 발견될 수 있으며, 삼엽충
화석이 들어있는 고대의 암석들도 들어 있다. 그곳에는
이렇게 화석이 들어 있는 퇴적암들로 구성된 땅 덩어리들
안쪽으로 손가락 모양의 긴 만(灣)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

59:1.7 (673.7) 수백만 년이 지난 후에 태평양이 아메리카 대륙을
침범하기 시작하였다. 그 지역의 침강은, 후기에 일어난
대륙의 분리 혹은 대륙의 유동 현상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지만, 주로 지표면 조절 현상으로 기인된 것이었다.

^{59:1.8 (673.8)} 380,000,000년 전에, 아시아 대륙이 가라앉았으며, 다른 대륙들은 일시적으로 융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신(新)시대가 지나면서,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대서양이, 인접한 전(全) 해안선을 광범위하게 침식시켰다. 그 때 북부 대서양 혹은 북극해는 남부의 걸프 바닷물과 연결되어 있었다. 남부에 있는 이 바다가 아팔라치아 해구(海溝)로 유입되었을 때, 그 물결이 산들의 동쪽 편으로 갑자기 밀어닥쳐서 알프스 산과 거의 같은 높이에 이르렀지만, 대륙들은 대개 완만한 낮은 지대, 거의 보잘것없는 광경을 이루고 있었다.

^{59:1.9 (673.9)} 이 시기에 침전된 퇴적물들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종류이다:

^{59:1.10 (673.10)} 1. 역암—해변 가에 퇴적된 물질.

^{59:1.11 (673.11)} 2. 사암—얇은 물이기는 하지만 파도에 의해서 진흙 침전물이 씻겨 내려갈 수 있는 곳에 만들어진 퇴적층들.

59:1.12 (673.12) 3. 이판암—보다 잔잔한 깊은 물속에 이루어진 퇴적층.

59:1.13 (673.13) 4. 석회암—깊은 물속에 있는 형성된 삼엽충 껍질이 들어 있는 지층.

59:1.14 (673.14) 이 시기에 형성된 삼엽충 화석은 뚜렷이 식별되는 특정한 변이들과 함께 어떤 근본적인 균일성을 보여준다. 세 개의 기원적 생명 이식으로부터 발전한 초기 동물들은 특징이 있었다; 저들 서반구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유라시아 집단의 것들, 그리고 오스트랄라시아 즉 오스트레일리아-남극대륙 유형과 조금 달랐다.

59:1.15 (674.1) 370,000,000년 전에, 남-북 아메리카의 거의 전 지역에 해당되는 거대한 지역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곧 이어서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도 물에 잠겼다. 북 아메리카의 특정 지역들만이 캄브리아기의 얇은 바다 수면 위에 남아 있었다. 500만 년 후에 땅이 융기되기 전에 바다가 먼저 줄어들었다. 땅이 솟고 꺼지는 이 모든 현상들은 극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발생했다.

59:1.16 (674.2) 삼엽충 화석이 들어 있는 이 신(新)시대의 지층은 중앙아시아를 제외한 전체 대륙 여기저기에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 암석층이 평행 상태를 이루고 있지만, 산으로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압력과 겹쳐지는 현상에 의해서 기울어지고 뒤틀어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압력은 많은 지역에서 퇴적층의 본래 성격을 변형시켰다. 사암(砂巖)은 석영으로 바뀌었고, 이판암은 점판암으로 변화되었으며, 반면에 석회암은 대리석으로 바뀌었다.

59:1.17 (674.3) 360,000,000년 전에, 땅은 여전히 융기되고 있었다. 남-북 아메리카는 잘 솟아올라 있었다. 깊이가 라았았던, 웨일즈 지역을 제외한 영국의 섬들과 서부 유럽 지역이 솟아올랐다. 이 시대 동안에 거대한 빙하 층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지층에서 이 지층들과 연결되는 것으로 짐작되는 빙하 퇴적층은, 독립된 산의 빙하 층으로 기인되었거나 아니면 나중에 발생한 빙하 조각들의 이동에 의해서 생긴 것들이다. 전 세계의 기후는 대륙성이 아니라 해양성 기후였다. 남부의 바다들은 현재의 온도보다 높았으며, 북아메리카 지역을 거쳐 양극

지방으로 퍼져갔다. 걸프 조류가 북아메리카 중심지역을 지나, 동쪽으로 굽어져서 그린란드 해안이 물에 잠기어 씻기고 따듯하게 했으며, 이제 얼음으로 덮여 있는 그 대륙을 열대성 기후인 정말로 하나의 파라다이스처럼 만들고 있었다.

59:1.18 (674.4) 그 해양 생물은 온 세계에 동일하게 퍼져 있었고, 해초, 단일 세포의 유기체, 단순한 형태의 스펀지, 삼엽충들, 그리고 다른 갑각류의 새우와 게 그리고 가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3,000 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완족류(腕足類)들이 출현하였으며, 그 중에서 200가지 정도만이 살아남았다. 이 동물들은 실천적으로 오늘날까지 변형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다양한 초기 생명의 표본이 되고 있다.

59:1.19 (674.5) 그러나 삼엽충들이 가장 우세한 생명 창조체이었다. 그것들은 성(性) 구분이 있는 동물이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존재했다; 수영은 잘하지 못하였고, 물위에 떠서 느리게 움직이거나 바다 밑바닥에서 기어 다녔으며, 나중에 나타난 천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는 자아-보호로 동그랗게 말아졌다. 그것들은 2인치

내지 1피트 길이까지 자랐으며: 초식성, 육식성, 잡식성, 그리고 “진흙을 먹는” 네 가지의 종류들이 있었다. 주로 무생물체를 먹고살았던 “진흙을 먹는” 종류의 능력은—존재 가능했던 최후의 다세포 동물이면서—어떻게 해서 그것들이 크게 번성되고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59:1.20 (674.6) 너희 지질학자들이 캄브리아기로 구분하는 5천만 년을 포함하여, 지구 역사의 긴 기간 끝에 나타난 유란시아의 생물학적 풍경은 이상(以上)과 같았다.

제 2 장. 제 1차 대륙 홍수—무척추(無脊椎) 동물기

59:2.1 (674.7) 이 시기의 특징인 일시적 대륙 융기와 침강 현상은 모두 점진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났으며, 화산 활동은 거의 동반되지 않았다. 연속적인 대륙 융기와 침강의 전 과정을 통하여, 아시아 대륙의 모체가 되는 육지의 역사는 다른 땅 덩어리들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 대륙은 침수 현상을 여러 번 겪었으며, 그때마다 가라앉는 방향이 틀렸고, 초기에 더 뚜렷하게 일어났지만, 다른 대륙들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달리, 일정한 퇴적암 형성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 아시아 대륙은 다른

모든 땅 덩어리들 중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59:2.2 (675.1) 350,000,000년 전에, 중앙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대륙들 위에 대(大)홍수기의 시작됨이 보였다. 땅 덩어리들은 반복하여 물로 뒤덮였으며; 얇기는 하지만 넓게 분포되어 흔들거리는 내륙 바다 수면 위로, 연안에 있는 구릉지들만이 솟아올라 있었다. 이 기간 동안의 특색은 세 번에 걸친 주요 홍수들이었지만, 그것이 끝나기 전에, 대륙들이 다시 융기되었고, 전체 육지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보다 15% 정도 더 컸다. 카리브 해 지역은 아주 높이 솟아올랐다. 유럽에서는 이 기간이 잘 식별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화산 활동이 계속되는 반면 육지의 유동은 적었기 때문이었다.

59:2.3 (675.2) 340,000,000년 전에,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광활한 육지가 다시 가라앉게 되었다. 세계 전역의 해양의 물들이 전체적으로 뒤섞였다. 이 때 거대한 석회암기가 있었으며, 이 때 형성된 암석 대부분은 석회 성분을 분비하는 해초들에 의해서 퇴적되었다.

59:2.4 (675.3) 수백만 년이 흐른 뒤에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의 대부분이 물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서반구(西半球)에서는 태평양의 한 지류만이 현재의 록키산맥과 멕시코 지역에 남아 있지만,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이 다시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59:2.5 (675.4) 330,000,000년 전에, 많은 대부분의 대륙이 다시 물위로 올라오면서, 비교적 고요한 시간대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었다. 온 세상이 고요한 가운데 오직 한 지역이 예외였는데, 북아메리카의 거대한 화산이 켄터키 동부 지역에서 폭발하였으며, 세상에 알려진 단일 화산 활동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것들 중의 하나였다. 화산재가 500 입방 마일에 이르는 지역에 15내지 20피트의 두께로 쌓일 정도였다.

59:2.6 (675.5) 320,000,000년 전에, 이 기간 중에 일어난 세 번째의 주요 홍수가 발생하였다. 지난번에 있었던 홍수에 의해서 물속에 잠겼던 땅들 전체를 이번의 홍수에 의한 물로 다시 뒤덮었으며, 아메리카와 유럽 전역 사방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북아메리카 동부와 서부 유럽은 물 아래로 10,000내지 15,000피트 깊이로 잠겼다.

59:2.7 (675.6) 310,000,000년 전에, 북아메리카의 남부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육지들이 다시 잘 올라와 있었다. 멕시코가 창발 되었고, 그로서 걸프 해가 창조되어, 그 이후로 계속 그 정체성은 유지되었다.

59:2.8 (675.7) 이 기간에 생명은 계속 진화되었다. 온 세계는 다시 고요해졌고 비교적 평온한 상태였으며; 기후는 온화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육지식물들은 해안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식물 화석들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생명 원형들이 잘 개발되었다.

59:2.9 (675.8) 식물로부터 동물로 변환되는 일이 이미 발생되었던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기는 하였지만, 개별적인 동물 유기체가 진화되는 엄청난 시기이기도 하였다. 척추를 가진 종류보다는 열등한 각종 생명들이 이 시기 동안 퇴적된 암석 속에서 화석으로 발견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해양 동물 군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물들은 모두 해양 유기체들이었다.

해안선을 따라 땅 속에 숨어 있는 약간의 지렁이 종류들을 제외하고는 아직 육상 동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육상 식물들도 아직 대륙에 퍼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공기 중에는 여전히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숨을 쉬는 생물체들이 실존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보다 원시적인 것들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물 생명에 의존하여 실존할 수밖에 없었다.

59:2.10 (676.1) 삼엽충들은 여전히 풍부하게 있었다. 이러한 작은 동물들은 수만 가지의 형태로 존재하였으며 오늘날 존재하는 갑각류들의 원조였다. 삼엽충들 중의 일부는 25 내지 4,000개의 작은 구멍을 갖고 있었다; 또 어떤 것들은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눈들을 갖고 있었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다른 몇 가지 형태의 무척추동물들과 함께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음 기간이 시작되면서 철저히 사라지게 되었다.

59:2.11 (676.2) 석회(石灰)-분비 조류(藻類)들이 널리 퍼져 있었다. 산호들의 초기 조상에 해당하는 수천 가지 종족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바다 벌레들이 풍성하였고,

멸종되게 되는 수많은 다양한 해파리들이 있었다. 산호들과 후기 유형의 해면(海綿)들이 진화되었다. 두족류(頭足類)들이 잘 발달되었고, 그것들은 오늘날의 진주색의 앵무조개, 낙지, 뼈오징어, 오징어 등으로 남아 있다.

59:2.12 (676.3) 수많은 다양한 외피 동물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의 껍질은 후대의 동물들이 가졌던 것처럼 방어 목적에 충분할 정도는 못되었다. 고대의 바닷물 속에는 달팽이류가 생겨났으며, 그들 중에는 홀겹의 바다달팽이, 고등, 그리고 다른 달팽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간에 있는 수백만 년의 기간에는 그 당시 모습대로 쌍각조개류 동물들이 생겨났으며, 긴 조개, 대합, 굴 그리고 가리비 등이 포용되어 있었다. 판막(瓣膜) 껍질을 가진 유기체들 역시 진화되어 갔고, 이 완족류(腕足類)들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물속에 살고 있었다; 여닫이 모양, 톱니 모양, 그리고 다른 여러 종류의 보호막들이 배열되어 있었다.

59:2.13 (676.4) 이렇게 하여 해양 생명의 두 번째 대단원이 막을 내리게 되며, 너희 지질학자들은 이 기간을 오르도비스기로 분류한다.

제 3 장. 제 2차 대 홍수—산호기—완족류기

59:3.1 (676.5) 300,000,000년 전에, 대륙이 또 한 번 물에 잠기는 긴 기간이 시작되었다. 고대의 실루리아 계(系) 바다들의 남쪽 방향과 북쪽 방향의 침식이 유럽과 북아메리카 전역에 만(灣)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륙이 바다 위로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안선에는 퇴적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바다에는 석회질 껍질을 가진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이 조개들이 바다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점차 매우 두꺼운 석회암 층을 이루었다. 이것이 넓게 분포된 최초의 석회암 퇴적층이며, 실천적으로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전역을 뒤덮었지만 지표면에 나타나 있는 곳은 매우 드물다. 고대에 형성된 이 암석층의 두께는 평균적으로 약 1,000피트에 이르지만, 이 퇴적층들의 대부분은 기울어짐, 솟아오름, 그리고 단층 작용에 의해서 크게 변형되었고, 많은 부분은 수정, 이판암, 대리석 등으로 변하였다.

59:3.2 (676.6) 불타는 바위들과 용암은 이 기간의 암석층들 속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큰 화산이 폭발하였던 남부 유럽과 동부의 메인 그리고 용암이 흘러내린 퀘벡의 지층에서만 예외적으로 발견된다. 화산 활동은 거의 지나간 상태였다. 물에 의한 퇴적작용이 최고점에 달해 있었고 산이 만들어지는 현상은 거의 없었다.

59:3.3 (676.7) 290,000,000년 전에, 바다는 대륙으로부터 많이 물러났고, 주변의 해양들의 바닥이 가라앉고 있었다. 대륙 덩어리들은 다시 침강될 때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모든 대륙들마다 초기의 산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지구의 지각 변동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아시아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과, 아일랜드로부터 시작하여 스코틀랜드를 거쳐 스피즈버겐으로 이어지는 칼레도니아 산맥이었다.

59:3.4 (677.1) 천연 가스, 석유, 아연, 그리고 납의 대부분은 이때에 형성된 퇴적층에서 발견되며, 천연 gas와 석유는 앞에 있었던 육지의 침수기 동안에 식물과 동물 성분들이 엄청나게 퇴적된 것으로부터 형성되었고, 반면에 광물질 퇴적층은 완만하게 흐르는 물에 의해서 퇴적된 것임을

나타낸다. 바위 소금의 퇴적층들 대부분은 이 기간에 속한다.

59:3.5 (677.2) 삼엽충들은 급격히 감소되었고, 보다 큰 연체동물들 혹은 두족류(頭足類)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 동물들은 15피트의 길이까지 자랐으며 직경은 1푸트였고, 바다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물류들은 갑자기 나타났으며 바다 생명의 통치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다.

59:3.6 (677.3) 이 시기에 큰 화산 활동이 유럽 지역에서 있었다. 이번에 지중해 해구(海溝) 그리고 특별히 영국 섬들 주변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광대한 화산 폭발은 지난 수십 억 년 동안 일어난 적이 없었다. 이 때 분출하여 영국 섬들 지역을 덮었던 용암은 오늘날 25,000피트 두께의 변형된 용암과 암석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암석층들은 얇은 바다 지층 위로 널리 퍼져 나간 간헐적인 용암 분출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그 결과 퇴적암 층들이 분산되었고,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바다 위로 높이 솟아올랐다. 격렬한 지진들이 북 유럽과, 특히 스코틀랜드에서 발생되었다.

59:3.7 (677.4) 해양성 기후가 여전히 온화하고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고, 따뜻한 바닷물이 극지방의 대륙들

해안을 적시어 씻겼다. 완족류를 비롯한 다른 해양 생명 화석들이 북극 근처의 퇴적층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복족류, 완족류, 해면체 동물, 그리고 암초를 형성하는 산호초들이 계속 증가되었다.

^{59:3.8 (677.5)} 이 시기가 끝나갈 무렵에 실루리아기 바다들이 남부와 북부 해양의 물들과 다시 섞이면서 두 번째로 진척되는 현상이 있었다. 두족류들이 해양 생명의 주종을 이루었고, 반면에 연관된 형태의 생명들이 점진적으로 발달되고 분화(分化)되었다.

^{59:3.9 (677.6)} 280,000,000년 전에, 대륙들은 두 번째 실루리아기 침수 상태로부터 거대하게 솟아올랐다. 그 침수기에 퇴적된 바위 층은 북아메리카에서 나이아가라 석회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그 지층 위로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암석층은 동부의 산맥들로부터 미시시피 계곡 지역까지 이르고 있지만, 남부 지역을 제외한 서부 쪽으로는 더 이상 분포되어 있지 않다. 일부의 지층들이 캐나다, 남아메리카의 일부,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에 퍼져 있으며, 이러한 나이아가라 계통의 지층의 두께는 약 600피트에

달한다. 나이아가라 퇴적층 바로 위에서 역암과 이판암 그리고 암염(巖鹽)의 퇴적물이 발견될 수 있는 지역이 여러 곳에 있다. 이것은 2차 침전물들이 쌓인 것이다. 이 소금은 번갈아 가면서 바다를 향해 벌어져 있던 거대한 초호(草蒿) 속에 들어 있다가 잘려나간 후에는 증발 현상이 발생하면서 용액 속에 다른 물질과 함께 소금이 남아 있게 된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 암염 층이 70피트의 두께를 이루기도 한다.

59:3.10 (677.7) 기후는 일정하고 온화했으며, 바다 화석들이 북극 지방에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가 끝날 무렵에 바다는 소금기가 과도하게 되어서 생명이 거의 살아남지 못하게 되었다.

59:3.11 (677.8) 실루리아기의 마지막 침수기간이 끝나가면서, 극피동물(棘皮動物)—돌 백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백합 모양의 석회암 퇴적층에 의해서 증명된다. 삼엽충은 거의 사라졌고, 연체동물이 바다를 계속 지배하였다; 산호초 형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보다 적당한 지역에서 원시 형태의 물에서 사는 전갈들이 처음으로 진화되어 나타났다. 그 직후에, 그리고 갑자기, 진정한

전갈들—실재로 공기 호흡으로 사는 동물—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59:3.12 (678.1) 이러한 발전에 의해서, 2,500만년 동안 계속된 제 3차의 해양 생명 기간이 끝나게 되며, 이 기간은 너희 연구원들에게 실루리아기로 알려져 있다.

제 4 장. 대륙 융기 단계—식물성 육지-생명 기간—어류기

59:4.1 (678.2) 오랫동안 걸친 육지와 물 사이의 투쟁 속에서, 바다가 비교적 승리를 거두는 기간이 길었지만, 육지가 승리를 거두는 시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리고 대륙의 표류는 아직 많이 진척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외에도 실천적으로는 세계의 모든 땅 덩어리들이 가느다란 지협(地峽)들과, 대륙을 잇는 좁은 육지로 언제나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59:4.2 (678.3) 실루리아기의 마지막 침수 상태로부터 대륙이 융기되자, 세계가 변화되고 생명이 진화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간이 끝나게 되었다. 그것은 지구상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벌거벗고 보잘 것 없던

이전(以前) 시대의 풍경이 무성한 초목으로 옷을 입었고, 최초의 광대한 숲이 곧 나타나게 되었다.

59:4.3 (678.4) 이 시기의 해양 생명은 초기의 종족 분리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서로 다른 모든 유형들이 자유롭게 섞이고 관계적-연합되었다. 완족류는 일찍이 최고로 번성되는 시기를 맞았으며, 절지동물(節肢動物)들이 그 뒤를 이었고, 만각류(蔓脚類)의 갑각동물들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엄청난 사건은 어류(魚類)의 갑작스러운 출현이었다. 그리하여 어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의 세계 역사는 동물에서의 척추동물 유형으로의 특징을 이룬다.

59:4.4 (678.5) 270,000,000년 전에, 대륙들이 모두 물위로 올라왔다. 수십억 년 동안 그토록 큰 육지가 동시에 물위로 올라온 적이 없었다; 전체 지구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큰 육지-용기 신(新)시대들 중의 하나였다.

59:4.5 (678.6) 5백만 년 후에는, 남-북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북부 아시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의 대륙이 잠시 동안 물에 잠겼고, 북아메리카에서는 한동안의 침수가

거의 끝났으며; 그 결과로 석회암 층이 500내지 5,000피트 두께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데본기의 다양한 바다들이 매번 다른 방향으로 확장되어, 북아메리카에 있는 거대한 북극의 내륙 바다는 북쪽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태평양과 연결되었다.

59:4.6 (678.7) 260,000,000년 전에, 대륙이 함몰되는 이 시기가 끝나게 될 때, 북아메리카는 태평양과 대서양 그리고 북극해와 걸프의 물이 동시에 연결되면서 바닷물에 의해 부분적으로 잠겼다. 최초의 데보니아기 홍수의 후반기 동안 퇴적된 층의 평균 두께는 약 1,000피트에 달한다. 이 시기의 특징을 이루었던 산호초를 통하여 그 내륙 바다들이 깨끗하고 얕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산호초 퇴적층은 루이스빌과 켄터키 근처의 오하이오 강 강변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약 100피트의 두께이고, 2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산호들이 들어 있다. 이러한 산호초 형성은 캐나다와 북부 유럽을 거쳐 북극해 지역까지 확장되었다.

59:4.7 (678.8) 이러한 침수기 이후에, 많은 해안선들이 적지 않게 융기하여, 초기의 퇴적층들이 진흙이나 이판암으로

뒤덮였다. 데보니아기 퇴적층들 중 하나의 특색을 이루는 붉은 색의 사암층(砂巖層)도 역시 그 속에 있으며, 이러한 붉은 색의 지층은 지구 표면 대부분에 퍼져 있고, 남-북 아메리카, 유럽,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발견된다. 그러한 붉은 색 지층은 건조 상태 혹은 반(半)건조 상태를 암시하지만, 이 신(新)시대의 기후는 여전히 온화하고 일정하였다.

59:4.8 (679.1) 이 기간 전체 동안, 신시내티 섬의 남동쪽 지역은 물위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영국 섬들을 포함하여 유럽 서부 지역 대부분은 침수되었다. 웨일즈와 독일 그리고 유럽의 다른 지역들에서, 데보니아기에 형성된 암석층은 20,000피트의 두께에 이른다.

59:4.9 (679.2) 250,000,000년 전에는 척추동물인 어류들의 출현이 목격되었는데, 모든 이전-인간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의 하나였다.

59:4.10 (679.3) 절지동물이나 갑각류 동물은 첫 번째 척추동물의 원조들이었다. 어류가 나타나기 위하여 두 종류의 변형된 절지동물 원조들이 있었다; 하나는 머리와 꼬리를 연결하는 긴 몸체를 가졌었고, 반면에 다른 하나는 척추가

없고 입이 없는 물고기 비슷한 유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비적인 유형들은 동물 세계의 최초 척추동물이 북쪽으로부터 갑자기 나타나게 되자 재빨리 멸종되었다.

59:4.11 (679.4) 이 기간에 속하는 물고기들 중에서 가장 큰 것들 대부분은 25피트에서 30피트 길이였고 어떤 것들은 이빨이 있었다; 지금-현재 볼 수 있는 상어들은 이러한 고대의 물고기들이 살아남은 것들이다. 허파와 껍질을 가진 물고기들이 진화의 절정에 도달하였고, 이 신(新)시대가 끝나기 전에, 물고기들은 민물과 바닷물에 이미 적응된 상태였다.

59:4.12 (679.5) 틀림없는 물고기 이빨의 뼈대와 해골들이,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밑에 가라앉은 퇴적층들 속에서 발견될 수 있고, 태평양의 수많은 보호된 만(灣)들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땅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곳의 해안을 따라 풍부한 화석 층이 자리 잡고 있다.

59:4.13 (679.6) 지구 위에는 육상 식물들이 새로운 구조를 이루면서 급격하게 퍼져 나갔다. 지금까지는 물가를 제외하고는 육지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거의 없었다. 이때부터, 그리고 갑자기, 양치류 족이 풍성하게 나타나

급속히 퍼져 나갔으며 솟아오르는 세계 전역을 뒤덮었다. 2피트 두께와 40피트 높이의 나무 유형이 곧 개발되었고; 나중에는 잎들이 진화되었으나, 이러한 초기의 품종들은 초보적인 잎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 보다 작은 초목들도 많이 있었지만, 대개 초기에 나타난 박테리아에 의해서 부식되었기 때문에 화석으로 발견되지 않는다.

59:4.14 (679.7) 대륙이 융기될 때, 북아메리카는 그린란드 쪽으로 향한 반도(半島)들에 의해서 유럽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현재 그린란드는 그 얼음 층 밑에 이러한 초기의 육상 식물들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59:4.15 (679.8) 240,000,000년 전에, 유럽과 남-북 아메리카 전역의 육지가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이 침강은 데보니아기의 홍수들 중에서 가장 협소한 것이었고 맨 나중에 발생한 것이었다. 북극해는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였고 대부분은 북아메리카에 흘러들었으며, 대서양은 유럽과 서부 아시아의 많은 지역을 침수시켰고, 남부의 태평양은 인도의 대부분 지역을 덮었다. 이번에 일어난 범람은 매우 서서히 발생하였고, 퇴각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일어났다. 허드슨 강 서쪽 강변을 따라

쫓아있는 캐츠킬 산맥은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이 신(新)시대의 가장 큰 지질학적 기념물 중의 하나이다.

59:4.16 (679.9) 230,000,000년 전에, 바다는 계속 퇴각하였다. 북아메리카의 대부분은 물위에 있었고, 거대한 화산 활동이 세인트로렌스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몬트리올에 있는 로얄 산은 이러한 화산들 중 하나가 침식되어 목 부분만 남아 있는 형태이다. 이 신(新)시대 전체의 퇴적층은 북아메리카의 아팔라치아 산맥에 잘 나타나 있으며, 그곳에는 서스케하나 강이 계곡을 침식시켜서 이러한 연속적인 지층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하였고, 그 층의 두께는 13,000피트를 넘는다.

59:4.17 (680.1) 대륙들의 융기가 계속되었고, 대기에는 산소가 풍부하게 되었다. 지구는 100피트 높이에 달하는 양치류 식물의 광활한 숲과, 그 당시의 독특한 나무들로 뒤덮였고, 숲은 고요하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나뭇잎이 움직이는 소리조차 없었는데, 이것은 그 나무들이 잎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59:4.18 (680.2) 이렇게 하여 가장 긴 기간의 해양-생명 진화 기간, 어류 시대가 끝을 맺게 되었다. 이 기간의 세계 역사는 거의

5,000만 년에 달하였다; 너희 연구진들에게는 데보니아기로 알려져 있다.

제 5 장. 지각-이동 단계—양치류-삼림의 석탄기—개구리 시대

59:5.1 (680.3) 앞에 있었던 기간에 일어난 물고기의 출현은 해양-생명 진화의 정점을 이루었다. 이 시점부터 육지 생명의 진화는 더욱 중요해진다. 그리고 이 기간은 최초의 육상 동물들의 출현을 위해 거의 이상적으로 설치된 무대를 열어 주었다.

59:5.2 (680.4) 220,000,000년 전에, 북아메리카 대부분을 포함한 많은 대륙들이 물위로 올라와 있었다. 육지는 호화로운 식물들로 뒤덮였으며; 이 시기는 정말로 양치류 시대라고 할 정도였다. 이산화탄소가 여전히 대기 중에 있었지만 농도가 줄어들었다.

59:5.3 (680.5)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아메리카의 중앙 부분이 침수되었고, 두 개의 거대한 내륙 바다가 조성되었다.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에 있는 고지대들은 현재의 해변 바로 밖에 있었다. 이윽고 이들 두 바다들은 서로 연합되었고, 서로 달랐던 생명 형태들이 섞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해양 동물군(群) 연합은 해양 생명에게 신속하고 전 세계적인 쇠퇴가 시작되도록 하였으며 그 다음에 육상-생명 기간이 열리도록 하였다.

59:5.4 (680.6) 210,000,000년 전에, 따뜻한 온도의 북극해 바닷물이 북아메리카와 유럽 대부분을 덮었다. 남극 지방의 물은 남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를 침범하였고, 반면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높이 솟아올랐다.

59:5.5 (680.7) 바다들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새로운 진화적 발전이 갑자기 이루어졌다. 최초의 육상 동물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것들 중에는 땅이나 물에서 살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있었다. 공기로 숨을 쉬는 이 양서류들은 절지동물에서 발달된 것이었으며, 절지동물들의 부레가 허파로 진화하였다.

59:5.6 (680.8) 소금기가 있는 바닷물로부터 육상 달팽이들과 전갈들 그리고 개구리들이 기어 올라왔다. 오늘날의 개구리들은 여전히 물속에 알을 낳고 있으며, 새끼 때에는 작은 물고기처럼, 올챙이로 존재한다. 이 기간은 개구리 시대라고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9:5.7 (680.9) 그 직후에, 곤충들이 처음으로 생겨났고, 거미, 전갈, 바퀴벌레, 귀뚜라미, 그리고 메뚜기들도 함께 나타났으며, 곧 전 세계의 대륙에 퍼졌다. 잠자리는 폭이 30인치나 되었다. 1,000여 종에 이르는 바퀴벌레들이 생겼고, 어떤 것들은 4인치 길이까지 자랐다.

59:5.8 (680.10) 두 가지의 극피동물들이 특별하게 잘 발생되었으며, 그것들은 화석이 되어 실체 안에서 이 신(新)시대를 잘 안내하고 있다. 조개를 먹는 큰 상어들도 역시 매우 잘 진화되었으며, 500만 년 이상 해양을 지배하였다. 기후는 여전히 온화하고 균일하였다; 해양 생명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민물고기가 나타났고 삼엽충은 거의 소멸되었다. 산호초들이 줄어들었고, 석회암의 대부분은 바다나리에 의해서 조성되었다. 보다 아름다운 건축용 석회암들은 이 기간 동안 퇴적된 것이다.

59:5.9 (681.1) 대부분의 내륙 바다들 속에 있던 물은 석회를 비롯한 다른 광물질들에 의해서 너무 많이 변화되었으므로 많은 해양 종족들의 진화와 발전을 크게 방해하게 되었다. 결국에는 광대한 암석 퇴적 현상의

결과로 바다가 깨끗해졌고, 어떤 지역에서는 아연과 납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다.

59:5.10 (681.2) 이러한 초기 석탄기의 퇴적층들은 500내지 2,000피트의 두께에 이르며, 사암과 이판암 그리고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오래된 지층은 많은 자갈과 하구(河口) 퇴적물과 함께, 육상 그리고 해상 동식물의 화석들이 들어 있다. 거의 활용할 수 없는 석탄이 비교적 오래된 이 지층에서 발견된다. 유럽에 널리 퍼져있는 이 퇴적층들은 북아메리카에 쌓여 있는 지층들과 매우 흡사하다.

59:5.11 (681.3) 이 시기가 끝날 무렵에 북아메리카가 융기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잠깐 중단된 적이 있었고, 바닷물이 전에 들어와 있던 지역의 반 정도를 덮었다. 이것은 짧은 기간 동안의 침수였으며, 대부분의 육지는 곧 물위로 올라왔다. 남아메리카는 아프리카를 통하여 여전히 유럽과 연결되어 있었다.

59:5.12 (681.4) 이 시기에 보스게스와 흑림 그리고 우랄 산맥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고대에 형성된 다른 산들의 흔적들이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발견된다.

59:5.13 (681.5) 200,000,000년 전에, 석탄기 중에서 실제로 활동적인 단계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가 있기 전 2천만 년 동안 전기 석탄 퇴적층들이 형성되었지만, 이때부터는 더욱 광대한 석탄 형성 활동이 진행되었다. 실재적인 석탄 퇴적 신(新)시대의 길이는 2천 5백만 년이 조금 넘는다.

59:5.14 (681.6) 육지는 해양 바닥의 활동에 의해서 바다물 높이가 바뀔에 따라 주기적으로 오르내렸다. 연안에 있는 늪지대들의 풍성한 초목들과 관련하여, 이러한 지구 지각의 불안정 상태—육지의 침강과 융기—는 광대한 석탄 퇴적층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이 기간이 석탄기로 알려지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기후는 지구 전체가 온화하였다.

59:5.15 (681.7) 석탄층들은 이판암과 암석 그리고 역암 등과 번갈아 가면서 형성되어 있다. 중부와 동부의 미국에 퍼져 있는 이러한 석탄 지대는 40피트 내지 50피트의 두께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퇴적층들 대부분은 나중에 육지가 융기되는 동안 물에 씻겨 내려갔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석탄이 들어있는 지층이 18,000피트의 두께를 갖는 곳도 있다.

59:5.16 (681.8) 현재의 석탄 지대 밑에 있는 진흙 속에서 성장하던 나무뿌리들이 현존된다는 사실은, 그 석탄이 현재 발견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다. 석탄은 이와 같은 먼 옛날 연안에 있던 늪지대와 습지에서 자라는 울창한 초목이 물의 보호 작용과 압력에 의한 변형으로 남아있는 물질이다. 석탄층에는 가스와 석유도 들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성장이 멈춘 식물의 잔여물인 토탄(土炭) 지대는 적당한 압력과 열을 갖게 될 때 석탄 유형으로 바뀐다. 무연탄은 다른 석탄보다 더 많은 압력과 열을 받을 때 형성된다.

59:5.17 (681.9) 여러 지층들로 형성된 북아메리카의 석탄층들은 육지의 침강과 융기가 몇 번 발생되었는지를 나타내 주며, 일리노이에서의 10개로부터, 펜실베이니아에서는 20개, 앨라배마에서는 35개,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75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민물과 바닷물의 화석들이 석탄지대에서 발견된다.

59:5.18 (682.1) 이 신(新)시대 전체를 통하여 남-북 아메리카의 산들이 태동되었고, 안데스 산맥과 원시 형태의 남부 록키산맥이 융기되었다.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의 거대한

높은 지대들이 가라앉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매우 침식되고 가라앉게 되어 두 해양의 해안선들은 대략 현재의 위치까지 퇴각하였다. 이 침수기간에 퇴적된 층은 약 1,000피트의 두께에 이른다.

59:5.19 (682.2) 190,000,000년 전에, 북아메리카의 석탄기 바다가 현재의 록키산맥 지역까지 서쪽으로 확장되는 현상이 있었으며, 북부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태평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해안선 지역이 변동을 일으키는 이 시기 동안 연안지대가 융기와 침강을 거듭하면서, 아메리카와 유럽 전역에 석탄이 여러 층으로 계속 쌓였다.

59:5.20 (682.3) 180,000,000년 전에, 석탄기가 끝나게 되며, 그 동안에 세계 전역—유럽, 인도, 중국, 북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들—에 석탄이 형성되었다. 석탄-형성기가 끝날 무렵에 북아메리카의 미시시피 계곡 동쪽이 융기되었고, 그 지역 대부분은 그 후로 계속 해수면 위에 남아 있었다. 이러한 육지-융기 기간은 북아메리카, 현재 아팔라치아 지역과 서부 지역에 있는 산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기점이 되었다.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의 산이-형성되는 지역들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다. 동부 아메리카와 서부 유럽은 그린란드 대륙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었다.

59:5.21 (682.4) 육지가 융기되자, 그 전에 있었던 시대들의 해양성 기후가 바뀌기 시작하였고, 그리하여 보다 기온이 낮고 변화가 많은 대륙성 기후가 시작되었다.

59:5.22 (682.5) 이 시기의 식물들은 씨를 맺었고, 바람에 의해서 먼 곳으로 넓게 퍼져갈 수 있었다. 석탄기의 나무줄기는 보통 직경이 7피트 정도였으며 125피트의 높이까지 자라는 것들도 있었다. 현대의 양치류들은 아득히 먼 옛 시대의 유물이다.

59:5.23 (682.6) 일반적으로, 이들은 민물 유기체를 위한 발달의 신(新)시대들이었으며; 그 전에 있었던 해양 생명에는 별로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이 기간의 중요한 특징은 개구리 그리고 그와 비슷한 종류들의 갑작스러운 출현이다. 석탄기의 생명 특징은 양치류 식물과 개구리들이다.

제 6 장. 기후 과도기—종자 식물기—생물학적 시련기

59:6.1 (682.7) 이 기간이 시작되면서, 해양 생명의 중추적인 진화적 발전이 끝나게 되었고, 그 다음의 육상 동물 시대로 이어지는 변환기가 시작되었다.

59:6.2 (682.8) 이 시기는 생명이 크게 둔화되는 기간이었다. 수천 종류의 해양 생명들이 사라졌고, 육지 위에는 아직 생명이 정착되지 못한 상태였다. 생물학적 시련기였고, 육지 표면과 해양의 깊은 곳에서 생명이 거의 사라지는 시대였다. 긴 해양-생명 시대가 끝날 무렵에, 지구상에는 100,000가지가 넘는 생명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환기가 끝날 무렵에는 500가지 미만만이 살아남게 되었다.

59:6.3 (682.9) 새로운 이 시대의 특징들은 지구 표면 온도의 하강이나 오랫동안 화산 활동이 없었던 것에서 기인되었다기보다는, 통상적이고 이전-존재했던 영향들—바다의 축소와 거대한 땅 덩어리들의 증대되는 융기—이 비정상적으로 병합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전(以前) 시대의 온화한 해양성 기후는 사라졌고, 좀 더욱 가혹한 대륙성 기후가 빨리 발달되었다.

59:6.4 (683.1) 170,000,000년 전에, 엄청난 진화적 변화와 조절 현상들이 지구 표면 전체에서 발생되었다. 해양 지대가 가라앉으면서, 육지가 세계 전역에서 솟아올랐다. 독립된 산봉우리들이 나타났다. 북아메리카의 동부 지역이 바다 위로 높이 올라와 있었다; 서부 지역은 서서히 솟아 올라왔다. 대륙들은 크고 작은 바다 호수들과 수많은 내륙 바다들로 뒤덮여 있었고 그것들은 좁은 해협으로 해양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변환기에 형성된 지층은 1,000내지 7,000피트의 두께에 이르고 있다.

59:6.5 (683.2) 이러한 육지 융기 기간 동안에 지구의 지각이 광범한 지역에서 접혀지는 현상이 있었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그리고 북아메리카와 유럽을 오랫동안 연결하고 있었던 대륙들을 포함한 특정한 반도들이 사라진 것을 제외하고, 이 시기는 대륙이 융기되는 시대였다.

59:6.6 (683.3) 내륙에 있는 호수들과 바다들의 물이 점차 마르게 되었다. 독립된 산과 지역적인 빙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특히 남반구(南半球)에서 심하였으며, 많은 지역들에서는, 지역적인 얼음 형성 현상으로 인한 빙하 퇴적층이, 후기에 형성된 상부의 석탄 퇴적층들 중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되기도 할 것이다. 두 가지의 새로운 기후적 요소들—빙하작용과 건조현상—이 나타났다. 지구상의 보다 높은 지역 대부분은 건조한 불모지가 되었다.

59:6.7 (683.4) 기후가 변화하는 이 기간 전체 동안, 육상 식물에게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씨를 맺는 식물들이 처음으로 나타났고, 그것들은 나중에 증가하는 육상동물 생명에게 보다 풍부한 먹이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곤충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다. 겨울과 건조기의 일시적인 생존 환경 정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휴면기가 진화적으로 발생되었다.

59:6.8 (683.5) 육상 동물들 중에서 개구리는 전반기 기간 동안 최고점으로 번성하였다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그것들은 오랫동안의 극심한 시련기에 메마른 웅덩이와 연못 속에서도 오래 살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생존되게 되었다. 개구리가 줄어드는 기간에, 개구리가 파충류로 진화하는 첫 단계가 아프리카에서 발생되었다. 그리고 땅 덩어리들이 아직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파충류 이전(以前) 단계의, 공기로 숨을 쉬는 이 창조체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 때 대기가 이미 많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동물이 숨을 쉬기에 아주 적합한 상태였다. 파충류 이전 단계의 개구리들이 도착된 직후에, 북아메리카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남아메리카로부터 분리되어 일시적인 독립 상태에 있었다.

59:6.9 (683.6) 해양의 물이 점차적으로 차가워졌으므로 해양 생명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 시대의 해양 동물들은 세 지역의 적당한 은신처로 잠시 동안 피난해 있었는데: 현재의 멕시코 만 지역, 인도의 갠지스 만, 그리고 지중해 지역의 시칠리아만이 그곳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 지역으로부터 새로운 해양 종족들이 힘든 환경 속에 태어났으며, 나중에는 바다들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

59:6.10 (683.7) 160,000,000년 전에, 육상 동물 생명을 유지시키기에 적당한 식물들로 육지 대부분이 뒤덮였으며, 기후는 동물이 호흡하기에 이상적인 상태가 되었다. 그 후에 해양 생명이 축소되는 기간이 끝나게 되었고,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종류들을 제외한 모든 형태들이 모두 사라지는 생물학적 수난의 시험 기간이 끝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그것들은 행성 진화 과정에서

계속 이어지는 시대들의 급속도로 발전되고 매우 분화된 생명에 대한 시조(始祖) 기능을 하였다.

59:6.11 (684.1) 이러한 생물학적 수난기가 끝나는 부분이 너희 학생들에게는 페름기로 알려져 있고, 행성 역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년에 해당하는, 긴 기간의 고생대가 종료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59:6.12 (684.2) 유란시아에서 생명을 키우는 거대한 온상이 그 목적에 잘 협조하였다. 육지가 생명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였던, 보다 발달된 육상 동물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산소가 대기 중에 함유되기 전의 오랜 기간 동안, 바다가 그 세계에 있는 초기 생명의 어머니 역할을 하였고 양육하였다. 두 번째 단계의 진화가 육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때부터 바다의 생물학적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59:6.13 (684.3) [유란시아에 배정된 기원적 무리단의 일원인, 네바돈의 생명운반자에 의해서 제시되었음]

제 60 편 초기 육지-생명 시대의 유란시아

60:0.1 (685.1) 해양 생명만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였던 시대는 끝났다. 땅이 융기되고, 지구의 지각과 해양이 냉각되고, 바다 면적이 줄어들면서 계속 깊어지고, 북반구에 있는 땅이 크게 솟아오르게 되자,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작용하여, 적도 지역으로부터 떨어진 모든 지역의 세계 기후를 심하게 변화시켰다.

60:0.2 (685.2) 앞에 있었던 신(新)시대가 끝나던 시기는 개구리들 시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육상 척추동물의 선조인 이것들은 더 이상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였고, 살아남은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매우 적은 숫자의 유형들만이, 앞에 있었던 생물학적 변환기의 혹독한 시련기를 건디어 내었다. 씨앗을 맺는 식물들조차도 거의 멸종된 상태였다.

제 1 장. 초기 파충류 시대

60:1.1 (685.3) 이 시대에 침전된 퇴적층은 대개 역암과 이판암 그리고 사암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메리카와 유럽에 퍼져 있는 이 퇴적작용의 증거물 전체에 포함된 석고와 적토 층들은 이 대륙들의 기후가 매우 건조하였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건조 지역들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높은 지대에 주기적으로 몰아치는 맹렬한 집중호우에 의해서 발생한 거대한 침식작용의 영향을 받았다.

60:1.2 (685.4) 이 지층들 속에서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지만, 육상 파충류의 수많은 발자국들이 사암층에서 발견될 수 있다. 많은 지역에서 이 기간 동안 1,000피트 두께라고 해도 형성된 적색 사암층에는 화석이 들어 있지 않다. 육상 동물 생명들이 계속 살아 있던 곳은 오직 아프리카의 특정한 지역들뿐이었다.

60:1.3 (685.5) 이 퇴적층들의 두께는 3,000피트에서 10,000피트까지 다양하며, 태평양 연안에서는 18,000피트에 이른다. 나중에 용암이 이 지층의 많은 곳에 투입되었다. 허드슨 강의 팔리세이드 암벽은 이러한 트라이아스기 지층사이에 현무암 용암이 분출되어 생성되었다. 화산 활동이 세계 여러 곳에 널리 퍼져 있었다.

60:1.4 (685.6) 유럽 전역, 특히 독일과 러시아에서, 이 기간 동안에 형성된 퇴적층들을 발견할 수 있다. 잉글랜드에 있는 새로운 적색 사암층은 이 시기에 형성된 것이다. 바닷물의 유입으로 인하여 남부 알프스에 석회암이 퇴적되었고 오늘날 백운석 석회암으로 독특하게 이루어진

벽들과 봉우리들 그리고 그 지역들에 있는 기둥들을 볼 수 있다. 이 지층은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서 발견될 것이다. 카라라 대리석은 그러한 석회암이 변형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남아메리카에서는 이 기간에 해당되는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는데, 그 대륙이 그대로 가라앉아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앞에 있는 신(新)시대와 뒤에 있는 신(新)시대에 계속 이어지면서 민물 또는 해양 퇴적층만이 발달하였음을 볼 수 있다.

60:1.5 (686.1) 150,000,000년 전에, 세계 역사상 초기의 육지-생명 기간이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는 생명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지만, 벽차면서도 냉혹했던 해양-생명 기간이 끝나던 때보다는 나았다.

60:1.6 (686.2) 이 시대가 시작될 때, 북아메리카의 동부와 중부, 남아메리카의 북반부, 유럽 대부분의 지역, 그리고 아시아 전 지역이 물위로 충분히 솟아 올라와 있었다. 처음에는 북아메리카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지만, 북아메리카를 아시아와 연결하고 있는 베링해협이 반도가 솟아 올라와서 오랫동안 고립되지는 않았다.

60:1.7 (686.3)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과 평행으로, 북아메리카에서 거대한 해구(海溝)가 형성되었다. 동부 코네티컷에서 거대한 단층 현상이 나타났고 한 쪽이 결국에는 2마일 가량 가라앉았다. 이러한 북아메리카 골짜기들의 대부분은 산악 지역에 있는 많은 웅덩이들은 민물과 바닷물이 들어 있는 호수들이 그러하듯이, 나중에 침식 작용에 의한 퇴적물로 채워졌다. 나중에, 함몰되었다가 다시 채워진 이 땅들이 그 땅 밑에서 발생한 용암 분출로 말미암아 높이 솟아올랐다. 여러 곳에 있는 석화(石化)된 삼림들은 이 시기에 형성된 것들이다.

60:1.8 (686.4)

대륙이 침수되어 있는 동안 대개 물위에 올라와 있었던 태평양 연안은, 지금은 태평양 바다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나의 큰 섬과,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침강하였다. 고대의 이 캘리포니아 앞 바다에는 해양 생명이 풍성하게 서식하고 있었으며, 동쪽으로 확장되어 중서부 지역의 옛 바다 분지와 연결되었다.

60:1.9 (686.5)

140,000,000년 전에, 앞에 있었던 시기 동안 아프리카에서 발달되었던 파충류 전의 두 가지 선조들이

갑자기 그리고 극소수만이 나타났던 반면, 파충류들이
충만한-성장의 형태로 출현하였다. 그것들은 급속도로
발전되어갔으며, 악어류와 비늘이 있는 파충류들 그리고
결국에는 해룡(海龍)과 날개가 달린 파충류들이 생겨났다.
변환기에 있었던 그것들의 선조들은 신속하게 사라졌다.

60:1.10 (686.6) 급속도로 진화하는 파충류인 공룡들이 이 시대의
지배자가 되었다. 그것들은 알을 낳았고 뇌가 작은 것이
다른 모든 동물들과 다른 점이었으며, 나중에 40톤에
이르게 된 거대한 몸통을 통제하는 그것들의 뇌가 겨우
1파운드 미만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초기의 파충류들은
보다 작았고 육식 동물이었으며 캥거루처럼 뒷다리로
걸어 다녔다. 그것들의 뼈는 새처럼 속이 비어 있었고
나중에 발달된 뒷다리 발가락은 세 개뿐이었는데,
그것들의 많은 발자국 화석이 거대한 새의 발자국인
것으로 오해되기도 하였다. 그 후에 초식성의 공룡들이
진화되어 나타났다. 그것들은 네 다리로 걸어 다녔고 이
무리들 중의 한 종류가 방호 갑옷 공룡으로 발전되었다.

60:1.11 (686.7) 수백만 년 후에 최초의 포유동물이 나타났다.
그것들은 태반을 갖고 있지 않았고 또한 실패작으로 즉시

판명되었다;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것은 포유류 동물 유형을 개량하는 하나의 실험적인 노력이었으나, 유란시아에서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60:1.12 (686.8) 이 기간의 해양 생명은 빈약하였지만 바닷물이 새로 육지로 범람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로서 바닷물의 침범이 얇은 물로 형성된 해안선을 다시 광대하게 조성됨으로써, 급속도로 개량되었다. 물이 얇은 지역이 유럽과 아시아 주변에 더 많았기 때문에, 많은 화석 지대들이 이 대륙들에서 발견된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그 시대를 연구하고자 한다면, 히말라야와 시베리아 그리고 지중해 지역들뿐만 아니라 인도와 남부 태평양 바다 분지를 조사해 보기 바란다. 해양 생명의 현저한 특색은 아름다운 암모나이트 껍데기의 현존이었으며, 그 화석 잔존들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다.

60:1.13 (686.9) 130,000,000년 전에, 그 바다들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시베리아와 북아메리카는 베링해협을 반도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었다. 캘리포니아의 태평양 연안에는 풍부하면서도 독특한 해양 생명들이 매우 많이 있었으며, 천여 종 이상의 암모나이트들이 보다 발전된 유형의

두족류 동물로부터 발생되었다. 이 기간 동안의 생명 변화들은 그것들이 과도기적이고 점진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혁명적인 것이었다.

60:1.14 (687.1) 이 기간은 2천 5백만 년 동안 계속되었고 트라이아스기라고 알려져 있다.

제 2 장. 후기 파충류 시대

60:2.1 (687.2) 120,000,000년 전에, 파충류 시대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 이 기간 중에 일어난 큰 사건은 공룡류의 진화와 쇠퇴 현상이었다. 육상 동물 생명은 그 크기에 있어서 최고의 발달기를 맞이하였으며, 이 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지구의 표면에서 실질적으로 멸종되었다. 하나의 종류로부터 진화된 모든 종류의 공룡류는 길이가 2피트도 안 되는 작은 것으로부터, 그 이후로 살아 있는 어떤 생물도 몸체를 결코 이와 견주지 못했던, 육식을 하지 않는 75피트 길이의 거대한 공룡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60:2.2 (687.3) 공룡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서부의 북아메리카에서 나타났다. 거대한 이 파충류들은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하고, 북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에

두루 있는 록키산맥 지역 전체와 서부 유럽, 남아프리카 그리고 인도 등지에 묻혀 있다.

60:2.3 (687.4) 거대한 이 창조체들은 체구가 점점 더 커지면서 활동력과 힘이 줄어들게 되었고; 반면에 그것들은 더 많은 양의 먹이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온 땅이 그들로 뒤덮이게 되자 문자 그대로 굶어서 죽었고 멸종되었다—그것들은 환경에 대처할 만한 지능이 없었다.

60:2.4 (687.5) 이 무렵에 오랫동안 솟아올라 있었던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 대부분은 평평해지고 대서양으로 씻겨 들어가서, 그 해안선은 현재보다 수백 마일 이상 멀리 밖으로 뻗어 있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지역은 여전히 융기된 상태에 있었지만, 이 지역들도 나중에는 북쪽 바다와 태평양에 의해서 침수되었고, 그 바다는 다코다의 블랙 힐스 지역까지 동쪽으로 들어와 있었다.

60:2.5 (687.6) 콜로라도와 몬태나 그리고 와이오밍에 있는 소위 모리슨 지대의 풍부한 민물 화석에 의해서 잘 보여주는 것처럼, 이 시기는 많은 내륙 호수들로 특징을 이루는 민물 시대였다. 민물과 바닷물 두 가지에 의한 이 퇴적층들의

두께는 2,000에서 5,000피트까지 다양하지만; 이 지층들 속에서는 석회암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60:2.6 (687.7)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멀리까지 확장되었던 바로 그 극지방의 바다가 남아메리카 전체도 마찬가지로 뒤덮었으며 다만 곧 모습을 드러내게 된 안데스 산맥은 예외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부분이 침수되었지만, 유럽 지역에서 가장 심하였다. 아름다운 석판 예술에 사용되는 남부 독일의 암석층은 이 침수기에 퇴적된 것이었으며, 그 지층들 속에는 고대에 있었던 곤충들의 섬세한 날개들을 보여주는 화석과 같이, 바로 어제의 생물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는 화석들이 보존되어 있다.

60:2.7 (687.8) 이 시대의 식물 분포는 앞에 있었던 시대와 거의 동일하였다. 양치류는 현상 유지 되는 정도였지만, 반면에 침엽수와 소나무는 점점 더 지금-현재와 같은 다양한 종류로 발전되었다. 일부의 석탄층이 지중해 북쪽 연안을 따라서 여전히 조성되고 있었다.

60:2.8 (687.9) 바다가 다시 넓어졌으므로 기후도 양호한 상태가 되었다. 산호가 유럽 지역의 물속에 퍼짐으로써, 기후가 아직 온화하고 일정함을 입증하였지만, 서서히

차가워지는 극지방의 바다들 속에서는 다시 출현하지 않았다. 이 시기의 해양 생명들은 크게 개량되고 발전되었으며, 특별히 유럽 지역에 있는 물속에서 그러하였다. 산호와 바다나리가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잠시 동안 나타났지만, 암모나이트가 해양의 무척추 생명보다 우위를 차지하였고, 그것들의 평균 크기는 3내지 4인치였으며, 어떤 종은 직경이 8피트에 이르는 것도 있었다. 어느 곳에든지 해면체 동물이 살았고, 오징어와 굴 종류들이 계속 진화되어 나타났다.

60:2.9 (688.1) 110,000,000년 전에, 해양 생물의 잠재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다. 성계는 이 신(新)시대에 일어난 대표적인 돌연변이들 중 하나였다. 게와 가제 그리고 오늘날 볼 수 있는 유형의 갑각류들이 완성되었다. 물고기 종류들 속에서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여, 철갑상어종이 처음으로 나타났지만, 사나운 해룡들은 육상 파충류로부터 유래되었고, 계속하여 온 바다에 창궐해 있었으며, 그것들로 인하여 전체 어류가 멸종될 위기에 처했었다.

60:2.10 (688.2) 이때는 뚜렷한, 그리고 계속되는 공룡의 시대였다. 그들이 육지에 너무나 들끓었기 때문에, 두 종류들이 바다가 침식해 들어오는 시기에 존속을 위하여 물로 뛰어들었다. 이들 해룡들은 진화의 퇴보를 의미하였다. 새로운 종류들이 발전되고 있는 동안에도, 어떤 계통들은 고정되어 있었고 또 어떤 종류들은 옛날로 후퇴하여 그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도 하였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두 종류의 파충류들이 육지를 저버리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들이다.

60:2.11 (688.3) 시간이 지나면서, 해룡들은 크기가 더욱 커져서 매우 둔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멸종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의 거대한 체구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크기의 뇌가 잘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거대한 어룡(魚龍)들이 어떤 경우에는 50피트의 길이까지 자랐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35피트의 길이에 달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뇌의 무게는 2온스 미만에 불과하였다. 악어와 비슷한 해양 동물 역시 육상의 파충류 유형으로부터 퇴보된 것이었지만, 해룡의 경우와는 달리, 알을 낳기 위하여 항상 육지로 되돌아갔다.

60:2.12 (688.4) 두 종류의 공룡들이 자아-보존을 위한 헛된 시도의 일환으로 물속으로 옮겨간 직후에, 육지에 살아남기 위한 더욱 치열한 경쟁에 의해서 다른 두 종류의 동물들이 공중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날아다닐 수 있었던 이 익룡(翼龍)들은 그 다음 시대에 나타난 순수한 조류의 선조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속이 비어있는 뼈를 가지고 있고 나는 듯이 달리는 공룡으로부터 진화되었으며, 그 날개는 박쥐와 같은 형태로서 20내지 25피트까지 펼 수 있었다. 고대의 이 날개 달린 파충류들은 10피트 길이까지 자랐고, 오늘날의 뱀처럼 분리될 수 있는 턱의 구조를 갖고 있었다. 날개 달린 이 파충류들은 한동안 잘 생존되는 듯 보였지만, 공중을 날아다님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종류로 진화되지 못하였다. 그것들은 새의 조상으로 생존되지 못한 종류들을 대표한다.

60:2.13 (688.5) 이 기간 동안 거북류들이 증가하였고, 최초의 형태는 북아메리카에서 나타났다. 그것들의 조상은 북쪽에 있는 반도의 길을 통하여 아시아로부터 왔다.

60:2.14 (688.6) 1억 년 전에 파충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었다. 공룡들은 그것들의 거대한 몸집에 비교할 때 뇌가 거의

없는 동물과 마찬가지로였으며, 그러한 거대한 몸뚱이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먹이를 찾기에는 지능이 너무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기능이 둔해진 이 육상 파충류들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 그 후로는 진화 과정이 육체적인 크기가 아니라 두뇌가 발달하는 쪽으로 일어났으며, 그러한 뇌의 발달은 이어지는 동물 진화와 행성 진보에 있어서의 각각의 단계에 대한 특징이 되었다.

60:2.15 (688.7) 파충류의 최고 발달기와 쇠퇴기가 포함된 이 기간은 거의 2천 5백만 년의 기간에 이르며, 이 시기는 쥐라기로 알려져 있다.

제 3 장. 백악기(白堊紀)—꽃-식물 시기—조류 시대

60:3.1 (688.8) 거대한 백악기의 이름은 바다에서 회백색의 연토질 석회암, 백악(白堊)을 만드는 풍성한 유공충(有孔蟲)이 현저하게 많이 존재한데서 연유되었다. 파충류가 유란시아를 통치하던 긴 기간이 이 시대 이후에 끝나게 되었고, 꽃을 맺는 식물들과 조류 생명이 이 때 땅 위에 출현하는 것이 목격 되었다. 또한 서쪽 방향과 남쪽 방향으로 대륙들이 이동하던 것도 멈추게 되었고, 거대한

지구의 지각 변형이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용암이 넓게 흘러 퍼지는 큰 화산 활동이 뒤따랐다.

60:3.2 (689.1) 앞에 있었던 지질학적 기간이 거의 끝나게 되었을 때, 산봉우리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륙의 대부분이 물위에 있었다. 그러나 대륙 땅 덩어리들이 계속 유동할 때, 태평양 바닥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거대한 장애물과 부딪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지질학적 기세들의 대립으로 인하여, 알래스카부터 시작하여 밑으로 멕시코를 거쳐 케이프 혼에 이르는 남북 방향의 거대한 산맥 전체가 형성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60:3.3 (689.2) 그렇게 하여 이 기간은 지질 역사상 현대 조산기(造山期)가 되었다. 이 시기 전에는 산봉우리들이 거의 없었으며, 다만 매우 넓은 폭으로 높이 올라온 지대들이 있었을 뿐이다. 이 때 태평양 연안 지역이 융기되기 시작하였지만, 그것은 현재의 해변이 있는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700마일 지점에 있었다. 시에라 산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금이 들어 있는 석영 층이 이 신(新)시대에 용암 분출의 산물로 형성되었다.

북아메리카의 동부 지역에서는, 대서양 바다의 압력이 작용하여 땅이 올라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60:3.4 (689.3) 100,000,000년 전에,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의 일부분이 물위로 충분히 올라와 있었다. 아메리카의 두 대륙들의 뒤틀림 현상이 계속되었고, 그 결과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이 변형되었으며 북아메리카의 서부 평원들이 서서히 융기되었다. 멕시코 지역 대부분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 남부의 대서양 물이 남아메리카 동부 해안을 침범하였으며, 결국에는 현재의 해안선까지 밀고 들어왔다. 그 때 대서양과 인도양이 현재와 비슷하게 존재하게 되었다.

60:3.5 (689.4) 95,000,000년 전에, 아메리카와 유럽 땅 덩어리들이 다시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남부의 바다들이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흘러들기 시작하였고 점차 북쪽으로 확대되어 북극해와 합류하게 되었으며, 그 대륙이 두 번째로 크게 침수되도록 영향을 미쳤다. 이 바다가 최종적으로 물러갔을 때, 현재와 비슷한 모양의 대륙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거대한 침수현상이 시작되기 전에, 동부의 아팔라치아 고지대들이 거의 모두 수면

밑으로 침강되었다. 순수한 점토질인 여러 색의 지층들이 오늘날 질그릇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 지층들은 이 시기 동안에 대서양 연안에 퇴적되어 형성된 것이었고, 평균 두께는 약 2,000피트에 이른다.

60:3.6 (689.5) 거대한 화산 활동이 알프스 남부 지역과 현재의 캘리포니아 해변 지역에 있는 산들에서 발생되었다.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 중에서 가장 큰 지구의 지각 변동들이 멕시코에서 발생되었다. 유럽, 러시아, 일본, 그리고 남아메리카 남부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기후는 점점 더 다양화 되어갔다.

60:3.7 (689.6) 90,000,000년 전에, 초기 백악기의 바다로부터 속씨식물이 발생되었고 곧 모든 대륙으로 퍼졌다. 이 육상 식물들은 무화과류 나무들, 목련나무, 그리고 툴립나무들과 함께 갑자기 나타났다. 그 직후에, 무화과류 나무들, 빵 열매 나무들, 그리고 종려나무 류가 유럽과 북아메리카 평원 서부 지역에 퍼졌다. 새로운 육상동물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60:3.8 (689.7) 85,000,000년 전에, 베링 해협이 닫혔고, 북쪽 바다의 차가운 물들이 차단되었다. 그리하여 대서양-만의

물속에 있는 해양 생명과 태평양에 있는 해양 생명이 크게
틀러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지금은 동일해진 이 두
바닷물의 온도가 차이 났기 때문이었다.

60:3.9 (689.8) 백악과 녹색 모래흙인 이회토의 침전물로 인하여
이 기간의 이름이 붙여졌다. 이 시기의 퇴적층은 매우
다양하여, 백악, 이판암, 사암, 그리고 적은 양의 석회암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질이 낮은 석탄 또는 갈탄도
포함되어 있고, 많은 지역에서 침전물들이 석유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지층들의 두께는 어떤 지역에서는
200피트에서부터 북아메리카의 서부지역과 유럽의 많은
지방들에서는 10,000피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
퇴적층들은 록키산맥의 동쪽 경계선을 따라 기울어진
구릉지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60:3.10 (690.1) 이 침전물 지층들은 백악과 함께 전 세계에
퍼져있으며, 구멍이 많이 있는 반(半)암석으로 구성된 이
지층들은 위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곳으로 물을
받아들여서 아래쪽으로 옮겨감으로써 현재 지구상에 있는
건조 지역 대부분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60:3.11 (690.2) 80,000,000년 전에, 지구의 지각에 큰 변동이 발생했다. 유동되던 대륙의 서쪽 방향 진행은 정지된 상태가 되었고, 뒤에서 밀려오는 대륙 덩어리의 완만한 운동에 의한 거대한 에너지로 인하여 남-북 아메리카 모두의 태평양 해안선이 위로 구겨졌고, 아시아의 태평양 해안선을 따라 심한 반향적인 변화가 일으켰다. 지금-현재의 산맥들에서 절정에 도달한 태평양 주변의 육지 용기는 25,000마일 이상의 길이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용기된 이것들은 유란시아에 생명이 출현한 이후로 가장 크게 표면이 일그러진 경우에 해당되었다. 지표면 위와 아래의 용암 흐름이 광대한 지역에 걸쳐서 넓게 퍼져나갔다.

60:3.12 (690.3) 75,000,000년 전에, 대륙 유동이 멈추었다. 알래스카로부터 케이프 혼에 이르는 태평양 연안 산맥들이 완성되었으나, 아직 산봉우리들이 겨우 있었다.

60:3.13 (690.4) 유동이 정지된 대륙의 역단층(逆斷層)이 북아메리카의 서부 평원의 고도를 계속 높였으며, 반면에 동부에서는 대서양 해안 지역의 마멸된 아팔라치아

산맥이 거의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로 똑바로 위로 투사되어 나왔다.

60:3.14 (690.5) 70,000,000년 전에, 록키산맥 지역이 최고점으로 융기되면서 지표면의 뒤틀림 현상이 일어났다. 큰 바위 조각이 영국에 있는 콜롬비아의 지표면에 15마일에 걸쳐서 단층을 형성하였다; 이곳에서 캄브리아기 암석이 백악기 지층들 위로 비스듬하게 솟아 나왔다. 캐나다 국경선 가까이에 있는, 록키산맥의 동쪽 기슭에서는 다른 단층 현상이 장관의 모습을 이루었다; 이곳에서 그 후에 조성된 백악기 퇴적층들 위로 밀려나온, 생명-이전(以前)의 암석층들을 발견할 수 있다.

60:3.15 (690.6) 이 기간 동안 화산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수많은 작은 화산 분화구들이 독립적으로 솟아올랐다. 가라앉아 있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해저 화산들이 폭발하였다. 시베리아를 포함한 아시아의 나머지 지역 대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물밑에 있었다.

60:3.16 (690.7) 65,000,000년 전에,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용암 분출들 중의 하나가 발생하였다. 이 때 퇴적된 지층들과 그 전에 흘러 나왔던 용암층들이 아메리카 대륙들 전역과 남-

북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유럽 일부 지역에서 발견될 것이다.

60:3.17 (690.8) 육상동물들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거대한 대륙의 창발로 인하여, 특별히 북아메리카에서 빠르게 번식되었다. 북아메리카는 이 시기의 육상 동물 진화가 많이 일어난 곳이었으며, 유럽의 대부분은 물속에 있었다.

60:3.18 (690.9) 기후는 여전히 온화하고 균일하였다. 극지방들의 날씨는 오늘날 북아메리카의 중부와 남부 지역의 기후와 거의 흡사한 좋은 상태였다.

60:3.19 (690.10) 식물 생명에서 거대한 진화 현상이 일어났다. 육상식물들 중에서 속씨식물 류가 강세를 나타냈고, 지금-현재 볼 수 있는 많은 나무들이 처음으로 출현하였으며, 그 중에는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오크나무, 호두나무, 플라타너스, 단풍나무, 그리고 현대의 종려나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과일나무들과 풀밭 그리고 곡식류가 풍성하게 자랐으며, 사람의 조상들이 동물 세계를 이루었던 것처럼, 씨를 맺는 이 풀들과 나무들이 식물 세계를 이루었다—그것들은 사람 자신의 출현 다음으로 중요한 진화였다. 꽃을 맺는 식물들의 큰 무리가 갑자기

그리고 단계적인 변화 없이 돌연변이로 나타났다. 그리고 새로운 이 식물들은 곧 세계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60:3.20 (691.1) 60,000,000년 전에, 육상 파충류들이 감소하였지만, 공룡들은 여전히 육지의 지배자로 남아 있었고, 이제 그 주도권은 육식을 하는 공룡들 중에서 보다 작고 꺽충꺽충 뛰는 캥거루 종류의 보다 기민하고 활동적인 유형에 의해서 대치되고 있었다. 그러나 약간 앞선 시대 언젠가에 새로운 유형의 초식 공룡들이 출현하였었으며, 육상 식물에 속하는 풀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이것들이 빠르게 증식되었다. 풀을 먹는 이 새로운 공룡들 중 하나는, 어깨 둘레에 갑옷 같은 것이 있고 두 뿔을 가진 순수한 네 발 짐승이었다. 직경이 20피트에 이르는 육지에서 사는 거북이가 출현하였고 현재와 같은 유형의 악어와 뱀들도 나타났다. 어류를 비롯하여 다른 해양 생명의 유형에도 거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60:3.21 (691.2) 앞선 시대들에서, 걷기도 하고 수영도 하던, 조류 이전의 동물들은 공중에서 머무는 것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익룡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종족들은 오래 살지 못하였고, 곧 사라졌다. 그것들 역시 몸통의 크기에 비하여

뇌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공룡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소멸되었다. 이 시대와 바로 앞에 있었던 시대 동안 포유동물을 조성하려던 시도가 실패로 끝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공중을 비행할 수 있는 동물을 조성하려던 두 번째 시도가 실패하였다.

60:3.22 (691.3) 55,000,000년 전에, 최초의 순수한 조류, 모든 조류 생명의 선조가 되었던 작은 비둘기 형태의 창조체가 갑자기 출현함으로써 진화에 획기적인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지구상에 세 번째로 나타났던 날라다니는 창조체였으며, 당대에 있었던 익룡으로부터 혹은 보다 초기 유형의 이를 가진 육상 조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파충류 집단으로부터 직접 갑자기 나타났다. 그리하여 이 시대는 파충류의 쇠퇴기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조류 시대로도 알려지게 되었다.

제 4 장. 백악기가 끝남

60:4.1 (691.4) 거대한 백악기가 끝나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그와 함께 대륙들이 바다에 의해 크게 침수되었던 기간도 끝나게 되었다. 특별히 이것은 북아메리카에서 진실인데, 그곳에는 정확히 24번의 거대한 바닷물 침범 현상이

있었다. 그 뒤에도 사소한 침범 현상들이 있었지만, 이들 중의 어떤 것도 이 시대와 그 이전 시대들 중에 일어났던 광대하고 긴 기간의 해양 침범 과정과는 비교될 수 없다. 육지와 바다가 번갈아 가며 우세했던 이 기간들은 백만 년 주기로 발생하였다. 해양 바닥과 대륙의 고도가 오르내리는 것과 연관된 긴 기간의 규칙적인 리듬 운동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주기적인 직각 운동이 이때부터 전체 지구 역사 동안 계속되었지만 빈도와 범위는 계속 줄어들었다.

60:4.2 (691.5) 이 기간 동안에 또한 대륙의 유동이 멈추었고 유란시아의 현대적 산악지대들이 조성되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러나 대륙 땅 덩어리들에 의한 압력과 오랫동안 유동하던 추진력에 의해 형성된 그 꺾어버린 힘만이 산을 만드는데 유일하게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다. 산맥의 위치가 결정되는 데 있어서 근원적인 주요 요소는, 앞에 있었던 시대들의 육지 침식과 해양 유동에 의하여 비교적 가벼운 퇴적물로 채워지게 되었던 선재하던 저지대 또는 해구(海溝)였다. 이러한 비교적 가벼운 육지 지역들의 두께는 종종 15,000내지 20,000피트에 이르렀다; 그렇게 때문에, 지구의 지각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압력을

받게 되었을 때, 지구의 지각 속에서 또는 그 지각 아래쪽에서 작용하는 충돌력과 압력에 대하여 보상하는 조절 역할을 잘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가벼운 이 지역들이 먼저 구김살이 잡히고 접혀지면서 위로 올라갔다. 때로는 접혀지는 현상 없이 땅이 융기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록키산맥이 융기된 경우는, 거대한 접혀짐과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와 함께 지표면과 땅 속에서 다양한 지층들이 거대한 단층을 이루었다.

60:4.3 (692.1)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산들은, 아시아와 그린란드 그리고 유럽에 있는 동-서 방향으로 조직된 오래된 지역들 속에 있다. 중간 정도로 오래된 산들은 태평양을 둘러싸는 주위의 산맥들과, 거의 같은 무렵에 형성된 동-서 방향으로 조성된 유럽의 두 번째 산맥 체계 속에 있다. 거대한 이 상승 현상은 거의 10,000마일의 길이에 이르며, 유럽에서부터 서인도 제도의 융기된 땅까지 뻗어 있다. 가장 젊은 산들은 록키산맥 체계 속에 있으며, 그곳은, 더욱 높은 지대들이 가운데에는 더러는 섬으로 남아 있기는 하였지만, 나중에 바다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덮이게 되는 땅의 융기 사건들만 오랜 세월 동안 일어났었습니다. 중간 정도로 오래된 산들이 형성된 이후에, 실제 산악 고지대가

용기되었고, 결국에는 자연 요소들의 복합적인 기교에 의해 예술적으로 깎여짐으로써 현재의 록키산맥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60:4.4 (692.2) 북아메리카에 있는 현재의 록키산맥 지역은 용기되었던 땅 그대로가 아니며; 오랫동안 침식되어 평평해진 후에 다시 용기되었다. 현재의 산맥 앞면은 다시 용기되었던 기원적 산맥 중에서 남아 있는 부분이다. 뾰족한 봉우리와 긴 봉우리는 두 세대 이상 산이 남아 있음으로써 이러한 조산(造山) 활동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두 봉우리들은 전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침수 동안에도 물위에 그 꼭대기를 드러내고 있었다.

60:4.5 (692.3) 지질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이 시기는 육지 위와 물아래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되고 활동적인 기간이었다. 산호와 바다나리가 줄어든 반면 성게는 증가 하였다. 앞에 있었던 기간 동안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던 암모나이트가 또한 급속도로 쇠퇴되었다. 땅 위에서는 양치류 숲 대부분은, 거대한 아메리카 삼나무를 포함하여 소나무와 기타 현대적 나무들에 의해서 대체되었다. 이 시대가 끝날 무렵까지, 태반을 갖는

포유류가 아직 진화되지 못한 반면, 생물학적 단계는 미래의 포유류 형태가 되기 위한 초기 선조가 그 다음 시대에 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갖추었다.

60:4.6 (692.4) 이렇게 하여, 육지 생명의 초기 출현으로부터, 인간 종족들의 직계 조상과 그와 평행으로 나타난 여러 지류들로 구성된 보다 후대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진화가 이루어진 긴 시대가 끝나게 되었다. 백악기인 이 시대는 5천만 년의 기간이었으며, 중생대라고 알려진 1억 년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포유류 이전의 육지생명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였다.

60:4.7 (692.5) [사타니아에 배정되었고 현재 유란시아에서 기능하고 있는 네바돈의 생명운반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61 편 유란시아의 포유류 동물기

61:0.1 (693.1) 포유동물 시대는 포유동물이 처음 기원되는 시기부터 시작하여 빙하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며, 거의 5천만 년에 이르는 기간이다.

61:0.2 (693.2) 이 신생대 기간 동안, 지구의 경치는 매우 매혹적인 모습—완만한 높낮이의 언덕들, 넓은 계곡들, 넓은 강들,

그리고 울창한 삼림들—이었다. 이 기간 동안 파나마 지협(地峽)은 두 번 오르내렸으며; 베링 해협의 반도는 똑같이 세 번 그랬다. 동물 유형은 그 숫자도 많았고 다양하였다. 진화동물 종류들의 최극위를 위한 끊임없는 고투에도 불구하고, 나무에는 새들이 우글거렸고, 지구 전체는 동물의 파라다이스이었다.

^{61:0.3 (693.3)} 다섯 개의 기간으로 구분되는 이 5천만 년 동안 누적된 퇴적층들은 연속되는 포유류 점령 시대를 기록해 놓은 화석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람이 실재적으로 나타나는 시대로 직접 연결된다.

제 1 장. 새로운 대륙 형성기—초기 포유류 시대

^{61:1.1 (693.4)} 50,000,000년 전에, 세계의 육상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이 물위에 있었고 침수된 지역은 매우 적었다. 이 기간에 형성된 지층들과 퇴적층들은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형성되었지만, 주로 육지에서 이루어졌다.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육지가 서서히 융기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낮은 지대와 바다 쪽으로 씻겨 내려갔다.

^{61:1.2 (693.5)} 이 시대 초기에 북아메리카에서 태반을 가진 포유류 유형이 갑자기 출현하였고, 이때까지 이루어진

진화적 발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태반(胎盤)이 없는 미숙한 종류들이 선재했었지만, 새로운 유형의 이 동물은 선재하던 파충류 선조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리고 갑자기 나타났으며, 그 파충류의 후손들은 공룡의 쇠퇴기까지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태반을 가진 포유류의 조상은, 크기가 작고 매우 활동적이며 육식 동물이었고 펄쩍펄쩍 뛰는 유형을 가진 일종의 공룡이었다.

61:1.3 (693.6) 이들 원시 포유류 유형들에서 포유류의 기본적인 자연본능이 현시되기 시작하였다. 포유동물들은 그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다른 모든 형태의 동물들보다 엄청난 생존의 장점을 갖고 있었다:

61:1.4 (693.7) 1. 비교적 성숙되고 잘 발육된 새끼를 출산.

61:1.5 (693.8) 2. 애정 어린 보살핌으로써 자기 새끼를 먹이고 양육하며 보호함.

61:1.6 (693.9) 3. 자아-영속에서 자신들의 우월한 두뇌 힘을 발휘.

61:1.7 (693.10) 4. 증가된 민첩성을 적으로부터 도망에 활용 .

61:1.8 (693.11) 5. 환경적 조절과 적응에 우월한 지능을 적용.

61:1.9 (694.1) 45,000,000년 전에, 해안선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가라앉으면서, 대륙의 중심 지대들이 융기되었다. 포유류
생명이 급속도로 진화되었다. 작은 크기의 파충류 모양,
알을 낳아서 번식하는 유형의 포유류가 탄생하였고,
그리고 나중에 캥거루가 된 동물들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돌아다녔다. 오래지 않아서 작은 말, 발이 빠른 코뿔소,
주둥이가 긴 맥, 원시 돼지 , 다람쥐, 여우 원숭이, 주머니
쥐, 그리고 원숭이 유형의 여러 종의 동물들이 생겨났다.
그것들은 모두 작고 원시적인 형태였으며 산악 지역에
있는 숲 속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하였다. 타조처럼 생기고
키가 10피트에 이르는 큰 육지 새가 나타났고 가로 9인치
세로 13인치 크기의 알을 낳았다. 이것들은 나중에 사람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새가 되었는데, 그 새는 매우 지능이
높았고 한 때 공중을 날면서 사람들을 운반해 주기도
하였다.

61:1.10 (694.2) 신생대 초기의 포유동물들은 땅 위와 물속과 공중
그리고 나무 꼭대기에서 살았다. 그것들은 한 쌍에서부터
11쌍에 이르는 젖을 갖고 있었으며, 모두 많은 털로 덮여
있었다. 나중에 나타나게 될 종류들과 마찬가지로, 연달아
붙어 있는 두 벌의 이를 갖게 되었고, 몸통에 비하여 큰

뇌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 중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들과 같은 형태는 하나도 없었다.

61:1.11 (694.3) 40,000,000년 전에, 북반구의 육지 지역들이 융기하기 시작하였고,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광대한 육지가 퇴적층을 이루었으며, 용암 분출과 뒤틀림 현상 그리고 호수의 형성과 침식 등을 포함하여, 다른 여러 가지의 육지 운동들이 발생하였다.

61:1.12 (694.4) 이 신(新)시대의 후반기 동안에는 유럽의 대부분이 침수되어 있었다. 육지가 약간 융기된 후 그 대륙에 많은 호수들과 만들이 있었다. 북극해는 함몰된 우랄 지역을 통하여 남쪽으로 흘러, 그 당시에 북쪽으로 확대되어 있던 지중해, 알프스, 카르파티아, 아페네 산맥들이 바다의 섬처럼 물위로 올라와 있던 피레네 산맥과 연결되었다. 파나마 지협이 융기되었고; 대서양과 태평양이 분리되었다. 북아메리카는 베링 해협을 반도에 의해서 아시아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에 의해서 유럽과 연결되어 있었다. 북쪽 위도(緯度) 지역에 있는 땅 덩어리의 이동 경로는 오직

우랄 해협에 의해서 차단되었고, 그 해협은 커지게 된 지중해와 함께 북극해와 연결되어 있었다.

61:1.13 (694.5) 많은 유공충(有孔蟲) 류가 들어 있는 석회암이 유럽 지역의 물속에 퇴적되었다. 바로 그 암석층은 오늘날 알프스 지역에서 10,000피트 높이로, 히말라야 지역에서 16,000피트 높이로, 티베트 지역에서 20,000피트 높이로 솟아올라 있다. 이 기간에 형성된 백악(白堊) 퇴적층은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의 해안선을 따라서, 남아메리카의 서쪽 해안선에서, 그리고 서부 인도 부근에서 발견되고 있다.

61:1.14 (694.6) 소위 시신세(始新世)라고 불리는 이 기간 전체 동안, 포유동물 기타 그와 비슷한 다른 생명의 진화는 거의 또는 아무런 방해 없이 계속되어졌다. 그 때 북아메리카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모든 대륙들과 육지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었고, 전 세계는 점차 다양한 유형의 원시포유 동물 군(群)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제 2 장. 최근의 홍수기—고등(高等) 포유류기

61:2.1 (694.7) 이 기간의 특징은 태반을 가진 포유동물들이 빠른 속도로 훨씬 더 진화된 것, 이 기간 동안 포유동물의 보다 진보된 형태가 개발된 것이었다.

61:2.2 (694.8) 초기의 태반을 가진 포유동물들이, 육식을 하는 조상들로부터 발생되기는 하였지만, 초식성의 종류들이 곧 이어서 개발되었고, 오래지 않아서 잡식성의 종류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속씨식물들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포유동물들의 중요한 먹이가 되었고, 지금-현재 볼 수 있는 식물과 나무들 대부분을 포함한 현대적 육상 식물군이 초기 동안에 모습을 드러냈다.

61:2.3 (695.1) 35,000,000년 전에, 태반을 가진 포유류 동물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남쪽에 있는 반도가 확장되어, 그 당시에 거대한 크기였던 남극 대륙을 남아메리카와 남아프리카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를 다시 연결시켰다. 넓은 육지가 높은 고도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대성의 바다들이 크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빙하지역을 형성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육지가 융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의 기후는 여전히 비교적 온화하였다. 광대한 용암 분출이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에서 발생되었고, 약간의 석탄 퇴적층이 이 지층들 사이에 형성되었다.

61:2.4 (695.2) 괄목할만한 변화들이 지구에 있는 동물군 속에서 발생되었다. 해양 생명은 큰 변화를 겪었고; 지금-현재와 같은 계층의 해양 생명이 실존하였으며, 유공충 종류들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곤충 생명은 앞에 있었던 시대의 그것들과 거의 같았다. 콜로라도에 있는 플로리선트 화석 지대는 아득히 먼 이 시대 후반기에 형성된 것이다. 살아있는 곤충 종류의 원조는 이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당시에 실존하던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은 멸종되었고 화석들만 남아 있다.

61:2.5 (695.3) 이 시기에 육지에서는 포유류가 현저하게 개량되고 넓게 퍼져 나갔다. 그 전에 있었던 보다 원시 형태들 중에서 백여 종 이상은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멸종되었다. 몸체가 크고 뇌가 작은 포유동물들도 곧 사라지게 되었다. 외피의 유무와 몸체의 크기 대신에, 뇌의 크기와 민첩성이 동물 생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공룡 종류들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점차 포유동물들이 지구를 지배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남아있던 파충류 조상들을 신속하고도 완벽하게 멸종시켰다.

61:2.6 (695.4) 공룡들이 사라지면서, 도마뱀 종류에 속하는 다양한 동물들에게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초기의 파충류 동물들 중에서 살아남은 것들에는 고대의 개구리를 비롯하여 거북이 종류와 뱀 종류 그리고 악어류가 있었고, 이것들은 사람의 초기 조상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대표적인 종류들이다.

61:2.7 (695.5) 다양한 종류의 포유류 동물들은 지금은 멸종된 독특한 동물에서 기원되었다. 육식 동물이었던 이 창조체는 고양이와 바다표범의 중간에 있는 형태였으며; 땅과 물속에서 살 수 있었고 상당히 발달된 지능과 활동력을 갖고 있었다. 개(犬) 과의 선조가 유럽에서 진화되어 나타났고, 수많은 종류의 작은 개들이 곧 생겨났다. 거의 동시에, 비버, 다람쥐, 땅 다람쥐, 생쥐, 토끼를 포함하여, 이로 갹아먹는 설치(楔齒) 동물들이 발생된 이래 주목할 만한 형태의 생명이 되었고, 이 종류들은 그 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 시대의 후기

퇴적층 속에는 개와 고양이 그리고 너구리와 족제비류(類)의 초기 형태 유골들이 들어 있다.

61:2.8 (695.6) 30,000,000년 전에, 현대적 유형의 포유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이 포유류 동물들 대부분이, 산의 유형을 갖추고 있는 언덕들 속에서 살았다; 발톱을 가진 육식하는 것과 구별되는, 발굽이 있는 종류, 육지에서 풀을 뜯는 평원 종류들의 진화가 갑자기 시작하였다. 풀을 뜯어먹는 이 종류들은 다섯 개의 발가락과 44개의 이빨을 가진 분화되지 않은 한 가지 종류에서 발생되었으며, 그 동물은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멸종되었다. 세 개의 발가락 단계를 지나서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발가락의 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61:2.9 (695.7) 진화에 있어서 대표적인 예가 되는 말(馬)은 이 기간 동안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서식하였지만, 빙하기 후기까지도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코뿔소 종류들은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서야 나타났지만, 곧 이어서 빠른 속도로 번식되어 퍼져 나갔다. 돼지와 멧돼지 그리고 하마에 해당하는 여러 종의 조상이 되었던 돼지 비슷한 작은 창조체도 또한 나타났다. 낙타와 하마가 이

기간 중반 경에 북아메리카에서 발생되었고 서쪽 평원을 가득 메우게 되었다. 나중에, 라마는 남아메리카로, 낙타는 유럽으로 이주하였고, 일부분의 낙타들이 빙하기까지 살아 있었지만, 두 종류는 모두 북아메리카에서 곧 사라지게 되었다.

61:2.10 (696.1) 이 무렵에 특기할만한 일이 북아메리카 서부에서 발생하였는데: 고대의 여우원숭이의 조상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 종류들은 순종 여우원숭이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도래는 순종(純種) 여우원숭이들이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계통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61:2.11 (696.2) 앞에 있었던 시대 동안에, 육지에 살던 뱀들이 바다로 피신하였던 것처럼, 태반을 갖는 하나의 포유동물 전체 종족이 이 기간 동안에 육지를 떠나 바다 속에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 후로 계속 바다에서 살았고, 현재와 같은 고래, 돌고래, 참돌고래, 바다표범, 강치류(類)를 이루었다.

61:2.12 (696.3) 지구에 있는 조류 생명은 계속 발전되었지만, 중요한 진화적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갈매기, 왜가리, 홍학, 말뚝가리, 매, 독수리, 올빼미, 메추라기,

그리고 타조 종류 등을 포함하여, 현대적인 새들 대부분이 실존되었다.

61:2.13 (696.4) 천만 년에 이르는 이 점신세(漸新世)가 끝날 때까지, 해양 생명과 육지 생명과 함께 식물 생명은 크게 진화되었고 오늘날과 흡사한 모습이 되었다. 괄목할만한 분화가 나중에 발생되기는 하였지만, 생명 대부분의 원조 형태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제 3 장. 현대의 조산기(造山期)—코끼리와 말의 시대

61:3.1 (696.5) 육지의 용기와 바다의 격리 현상은 지구의 기후를 서서히 변화시켰고 점차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게 하였지만, 그 기후는 아직 온화한 상태였다. 세쿼이아와 목련들이 그린란드에서 자랐지만, 아열대성 식물들은 점점 남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이 되자, 이러한 온대 기후의 식물들과 나무들은 북쪽 위도 지방들에서 많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보다 강한 식물들과 낙엽 나무들이 자라게 되었다.

61:3.2 (696.6) 풀 종류들이 매우 다양하게 생겼고, 많은 포유동물들의 이빨이 점차 변화되어 현재와 같이 풀을 뜯어먹는 유형이 되었다.

61:3.3 (696.7) 25,000,000년 전에, 긴 신(新)시대동안의 육지 융기가 이루어진 후에 잠깐 동안의 침수 형상이 있었다. 록키산맥 지역은 높이 솟아오른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침식된 물질들이 낮은 지역 전체에서 동쪽으로 계속 퇴적되었다. 시에라 산맥이 상당한 정도로 다시 융기되었고; 사실, 그것들은 그 후로 계속 융기되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4마일에 이르는 거대한 단층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61:3.4 (696.8) 20,000,000년 전에, 포유동물들이 정말로 황금기를 맞이하였다. 베링 해협이 반도가 물위에 있었고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아시아로부터 북아메리카로 이주하였으며, 그들 중에는 네 개의 엄니를 가진 매스토돈과 다리가 짧은 코뿔소 그리고 매우 다양한 고양이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61:3.5 (696.9) 최초의 사슴이 나타났고, 북아메리카에는 반추(反芻) 동물들—사슴, 황소, 낙타, 들소, 그리고 몇 가지 종류의 코뿔소 종류들—이 가득 차게 되었으나, 반면에 키가 7피트나 되는 큰 돼지들은 멸종되었다.

61:3.6 (697.1) 이 시대와 후대에 있었던 거대한 코끼리 종류들은 몸체가 컸을 뿐만 아니라 큰 뇌를 갖고 있었으며, 그것들은 곧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세계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 이번에는, 계속 살아남기에 충분할 정도의 뇌를 가진 거대한 동물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되었다. 이 시대에는 높은 지능을 가진 생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코끼리처럼 큰 몸체이면서 우월한 본질특성과 큰 뇌를 갖지 못한 동물들은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 지능과 적응 능력으로 볼 때 코끼리에 근접될 정도의 동물로는 말밖에 없었고 사람만이 그보다 월등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대 초기에 실존하였던 50가지의 코끼리들 중에서 두 가지 종류만이 살아남게 되었다.

61:3.7 (697.2) 15,000,000년 전에, 유라시아의 산악 지대들이 융기되었고, 그 지역 전체에는 약간의 화산 활동이 있었지만, 서반구에 있었던 용암 분출에 비교될 정도는 아니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가 전 세계에 퍼져있었다.

61:3.8 (697.3) 지브롤터 해협이 닫혀졌고, 스페인과 아프리카는 오래된 반도에 의해서 연결되었지만, 지중해는 프랑스 지역으로 나있는 좁은 수로를 통하여 대서양으로

흘렀으며, 산봉우리들과 고지대들이 고대의 이 바다 위로
섬처럼 올라와 있었다. 유럽의 이 바다들은 나중에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였다. 그보다 더 후대에는, 이 지중해가
인도양과 연결되었고, 이 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수에즈
지역이 융기되어 지중해는 한동안 염분을 가진 내륙
바다가 되었다.

61:3.9 (697.4) 아이슬란드 반도가 침수되었고 북극해의 물은
대서양의 물과 혼합되었다. 북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은
신속하게 냉각되었으나, 태평양 연안은 현재보다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거대한 해류 현상이 있었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기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61:3.10 (697.5) 포유류 생명은 계속 진화되었다. 말들로 구성된
거대한 무리가 북아메리카 평원에서 낙타들과
합류하였고; 코끼리들의 시대이며 동시에 말들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말 종류의 뇌는 동물적
본질특성에서 코끼리 종류의 뇌 다음으로 발달되어
있었으나, 깜짝 놀랐을 때 도망치는 고질적인 성향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한 가지 면에서는
확실히 열등하였다. 말은 코끼리보다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였고, 반면에 코끼리의 결점은 몸체가 크고 활동적이지 못하다는 점이였다. 이 기간 동안에 코끼리와 말 둘 모두를 어느 정도 닮은 한 동물이 진화되어 나타났지만, 고양이 과(科)의 동물들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곧 도태되었다.

61:3.11 (697.6) 유란시아가 소위 "말(馬)이 필요 없는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너희는 잠시 멈추어 서서 이 동물이 너희 선조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을 식품으로 이용하였고, 그 다음에는 여행에 이용하였으며, 나중에는 농업과 전쟁에 사용하였다. 말은 오랫동안 인류에게 유익을 주었으며 인간의 문명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61:3.12 (697.7)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생물학적 발전은 후에 나타날 사람을 위한 무대 준비에 많이 기여하게 하였다. 지금은 멸종되었지만, 동일한 조상에서 기인된 원시 유형의 원숭이와 고릴라의 순종 유형이 중앙아시아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종류들 중 어느 것도, 나중에 인간 종족들의 선조가 되는 생물체의 계통과는 관계가 없다.

61:3.13 (697.8) 개(犬) 과(科)는 몇 개의 군(群)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중에 두드러진 것은 이리 종류와 여우 종류가 있다; 고양이 종류 중에는 표범 종류와 송곳니가 있는 호랑이 종류가 대표적인 것이고, 이 호랑이는 북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진화되어 나타났다. 오늘날 볼 수 있는 고양이 과(科)와 개 과(科)는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은 숫자가 되었다. 족제비, 담비, 수달, 그리고 너구리 종류는 북쪽 위도 전 지역에서 번식되고 발전되었다.

61:3.14 (698.1) 조류들은 특기할만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계속 진화되었다. 파충류들은 현대와 같은 유형—뱀, 악어 거북이 종류들—와 비슷하게 되었다.

61:3.15 (698.2) 이렇게 하여 세계 역사상 매우 사건 많고 흥미로운 기간이었던 이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코끼리와 말이 주종을 이룬 이 시대는 중신세(中新世)라고 알려져 있다.

제 4 장. 최근의 대륙—육지 단계 최종적인 포유류 이주

61:4.1 (698.3) 이 시대에는 북아메리카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서 빙하기 이전의 육지 육기가 있었다. 육지는 지형적으로 크게 변경되었다. 산맥들이 형성되었고,

하천들의 경로가 바뀌었으며, 독립적인 화산 폭발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

61:4.2 (698.4) 10,000,000년 전에, 대륙들의 낮은 지역들 전체에는 지역적인 퇴적층들이 이루어졌지만, 이것들 대부분은 나중에 제거되었다. 이 때 잉글랜드와 벨지움 그리고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많은 지역은 아직 물밑에 있었고, 지중해는 북아프리카 대부분을 덮고 있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광대한 퇴적 현상들이 산들의 기슭과 호수들 그리고 거대한 육상 분지 속에 이루어졌다. 이 퇴적층들의 두께는 약 200피트에 불과하고, 다소 색깔을 띠고 있으며, 화석은 드물게 들어있다. 두 개의 거대한 호수들이 북아메리카 서쪽 지역에 존재했다. 시에라 지역이 솟아올랐고; 샤스타와 후드 그리고 레이니어 지역에서는 조산(造山)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뒤에 있게 될 빙하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함몰된 대서양 쪽으로 북아메리카가 서서히 이동하였다.

61:4.3 (698.5) 짧은 기간 동안,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세계의 모든 대륙들이 다시 연결되었고, 마지막으로 거대한 범세계적 동물 이주 현상이 발생되었다. 북아메리카는

남아메리카와 아시아와 연결되어 있었고, 동물들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였다. 아시아의 나무늘보, 아르마딜로, 영양, 그리고 곰 종류들이 북아메리카로 들어왔고, 반면에 북아메리카 낙타 종류들이 중국으로 건너갔다. 코뿔소 종류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남아메리카를 제외한 세계 전역으로 퍼졌으나, 서반구(西半球) 지역에서는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멸종되었다.

61:4.4 (698.6) 앞에 있었던 기간에 존재하던 생명은 대개 계속 진보되고 퍼져 나갔다. 고양이 과(科)의 동물들이 동물 생명을 지배하였고, 해양 생명은 거의 답보 상태에 있었다. 대개의 말 종류들은 여전히 세 개의 발톱을 갖고 있었지만, 현대적 유형이 나타났으며; 하마와 기린 모양의 낙타 종류들이 초원 평야에서 말 종류와 합류되었다. 기린이 아프리카에서 출현하였고, 현재와 똑같은 모습의 긴 목을 갖고 있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나무늘보, 아르마딜로, 개미핥기, 그리고 남아메리카 유형의 원시적 원숭이 종류들이 진화되어 나타났다. 대륙들이 최종적으로 분리되기 전에, 거대한 그 동물들, 매스토돈들이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각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61:4.5 (698.7) 5,000,000년 전에, 말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진화되었고 북아메리카로부터 전 세계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그 말이 기원되었던 대륙에서는 홍인종이 도착되기 훨씬 전에 멸종되었다.

61:4.6 (698.8) 기온은 점차로 하강하였고; 육상 식물들은 서서히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처음에는, 북쪽 지역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 때문에, 북쪽의 지협들을 건너서 이주하던 동물들의 발길이 끊어지게 되었다; 나중에는, 북아메리카의 이 반도들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동물들이 이주할 수 없었다. 그 후로 얼마 안 있어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연결하던 반도가 최종적으로 가라앉았고, 서반구는 오늘날과 거의 같은 모습으로 분리되었다. 이 때 이후부터는 동반구와 서반구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독특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61:4.7 (699.1) 그리하여 천만 년에 가까운 이 기간이 마감하게 되었지만, 사람의 조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기간은 대개 선신세(鮮新世)라고 알려져 있다.

제 5 장. 초기 빙하시대

61:5.1 (699.2) 앞에 있던 기간이 끝날 무렵에, 북아메리카와 북부 유럽의 북동쪽 지역이 광대한 범위로 높이 솟아올랐고, 북아메리카에서는 거대한 지역이 30,000피트 이상 융기하였다. 전에는 이 북쪽 지역이 온화한 기후를 나타냈었고, 북극(北極) 지방의 물은 모두 증발되었으므로, 그 지역들에는 빙하가 거의 끝날 때까지도 계속 얼음이 없었다.

61:5.2 (699.3) 이러한 육지 융기와 동시에 해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고, 계절풍의 방향도 바뀌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에는, 북쪽에 있는 고지대로 이동된 습도가 아주 높은 대기로부터 거의 끊임없이 비가 내리게 하였다. 융기되어 기온이 내려간 이 지역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고, 20,000피트의 깊이가 될 때까지 계속 떨어졌다. 고도가 높고 눈이 가장 많이 쌓인 지역들은 나중에 빙하가 그 압력에 의해 이동하게 되는 중심지역이 되었다. 그리고 그 빙하기는 엄청난 눈이 북쪽에 있는 이 고지대들에 계속 내려서 거대한 눈덩어리가 형성될 때까지 계속되었고, 그 눈덩어리는 곧 고체로 변하였고 서서히 움직이는 얼음 덩어리가 되었다.

61:5.3 (699.4) 이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얼음 덩어리들이, 융기된 고지대 전역을 뒤덮었으며, 그 지역은 오늘날 발견되는 산악지대가 아니다. 빙하 지대의 반은 북아메리카에 있었고, 4분의 1은 유라시아에,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다른 지역 특히 남극 대륙에 있었다. 아프리카는 빙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으나, 오스트레일리아는 남극의 얼음 층으로 거의 전부 뒤덮여 있었다.

61:5.4 (699.5) 지구의 북쪽 지역은, 각각의 얼음 층의 활동과 연관된 확장과 축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여섯 차례의 독립적이고도 뚜렷한 빙하 침해를 받았다. 북아메리카의 빙하는 두 군데에 집중되었고, 나중에는 세 중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린란드는 완벽하게 뒤덮여 있었고, 아이슬란드는 이동하는 얼음 층 밑에 완벽하게 묻혀 있었다. 유럽에서는 남부 잉글랜드 해안을 제외한 영국의 모든 섬들이 여러 차례 얼음으로 뒤덮였고, 서부 유럽으로부터 프랑스에 이르는 지역에 빙하가 퍼져 있었다.

61:5.5 (699.6) 2,000,000년 전에, 북아메리카의 첫 번째 빙하가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때부터 빙하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 빙하가 북쪽에 있는 활동 중심지에서 처음 확장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다시 그곳으로 축소되는 시기까지 거의 백만 년이 소요되었다. 중앙에 있는 얼음 층은 남쪽으로 확장되어 캔자스 까지 이르렀으나; 동부와 서부에 있는 빙하 중심지는 그 때에는 별로 확장되지 않았었다.

^{61:5.6 (699.7)} 1,500,000년 전에, 거대한 첫 번째 빙하가 북쪽으로 퇴각하였다. 그러는 동안, 엄청난 양의 눈이 북아메리카 북동쪽 지역과 그린란드에 내렸고, 오래지 않아서 동쪽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것이 빙하에 의한 두 번째 침해 현상이었다.

^{61:5.7 (699.8)} 이와 같은 두 번의 빙하 침해는 유라시아까지 확장되지는 않았다. 빙하기의 초기에 해당되는 이 신(新)시대 동안, 북아메리카에는 매스토돈, 털로 뒤덮인 거대한 코끼리, 말, 낙타, 사슴, 사향소, 들소, 땅나무늘보, 대형 비버, 송곳니가 있는 호랑이, 코끼리처럼 큰 나무늘보, 그리고 많은 종류의 고양이 과(科)와 개 과(科)의 동물들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빙하시대의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짐으로써, 그것들은 이때부터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빙하기가 끝날 때까지 이 동물 종류들의 대다수는 북아메리카에서 멸종되었다.

61:5.8 (700.1) 빙하기 이후로 지구에 있는 육상 그리고 수상 생명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빙하 침해 기간들의 사이에는 기후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보다 약간 더 온화하였다. 빙하 현상은 그것들이 넓은 지역에 퍼지기는 하였지만 결국 지역적인 현상이었다. 해안 지역의 기후는, 빙하가 활동하지 않는 시대와 거대한 빙산들이 메인해안에서 대서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퓨지트 사운드를 통과하여 태평양으로 미끄러져 힘차게 노르웨이의 협만 아래의 북해 속으로 내려가던 시기 사이에, 매우 심하게 변화였다.

제 6 장. 빙하시대의 원시인

61:6.1 (700.2) 이러한 빙하시대의 중대한 사건은 원시인의 진화였다. 현재는 물속에 잠겨 있고 인도 서쪽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아시아로 이주한 고대 북아메리카의 여우원숭이의 후손 중에서 새로운 포유동물이 갑자기 나타났다. 크기가 작은 이 동물들은 대개 뒷다리만을 사용하여 걸어 다녔으며, 몸체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동물들의 뇌에 비해서 매우 큰 뇌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종류의 생명의 70대 후손 중에서 하나의 새롭고도 높은 동물 종류가 갑자기 변이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새로운 반(半) 포유동물—그것들의 선조들보다 크기가 거의 두 배에 달하고 균형 있게 증대된 두뇌 능력을 가진—이 만족스러운 상태로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세 번째의 지극히 중대한 돌연변이인 영장목이 갑자기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반 포유류 종족 속에는 퇴화 현상이 나타나 원숭이의 조상이 되었다; 그 날 이후로 이러한 인류 계통은 점진적인 진화의 과정에 들어갔으며, 반면에 원숭이 종족들은 그 상태로 고정되어 있거나 실재적인 퇴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61:6.2 (700.3) 1,000,000년 전에, 유란시아는 거주 세계로 등록되었다. 진화하는 영장목의 종족 속에서 하나의 돌연변이에 의해, 인류의 실재적인 조상이 되는 두 명의 원시 인간 존재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61:6.3 (700.4) 이 사건은 세 번째 빙하 확대기가 시작될 무렵에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조상들이 자극적이고 고무적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양육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유란시아 토착민들 중에서 유일한 생존자, 에스키모 종족은 지금까지도 혹독하게 추운 북쪽 지방에서 사는 것을 더 좋아한다.

61:6.4 (700.5) 그 빙하기가 끝날 때까지 서반구에는 인류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간빙기 신(新)시대들의 사이에 있는 기간 동안 그들이 서쪽으로 이동하여 지중해 부근에 도착하였고 곧 유럽 대륙에 가득 퍼지게 되었다. 서부 유럽에 있는 동굴들 속에서, 인류의 뼈들이 열대성 동물과 북극 지방 동물들의 잔해들과 함께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빙하가 확장되고 축소되는 후기의 신(新)시대 동안 사람이 이 지역에 살았던 것이 증명될 수 있다.

제 7 장. 계속되는 빙하기

61:7.1 (700.6) 빙하기가 계속되는 동안 다른 활동들도 진행되었지만, 얼음 층의 활동 때문에 북쪽 위도 지방에서는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지 못하였다. 다른 어떤 육상 활동도 이때처럼 지형학적으로 뚜렷한 특징의 증거를 남겨놓지 못하였다. 특색 있는 둥근 돌과, 수직으로 생긴 동굴과 호수들 그리고 치환된 암석과 가루가 된 바위 등과 같은 지표면의 균열 현상들이 발견되는데, 이것들은

다른 자연 현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그 얼음 층은 빙퇴구(氷堆丘)라고 알려진, 완만하게 솟아오르거나 지표면의 굽이치는 현상을 낳기도 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빙하가 확장되면서 강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기도 하고 지구 표면 전체를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빙하들은 이동된 흔적들—바닥과 측면 그리고 끝나는 지점의 빙퇴석(氷堆石)들—만을 뒤에 남겨놓을 뿐이었다. 이러한 유동 현상들, 특별히 바닥의 빙퇴석들은 북아메리카의 동쪽 해안선으로부터 북쪽과 서쪽으로 뻗어 있으며 유럽과 시베리아에서 발견된다.

61:7.2 (701.1) 750,000년 전에, 북아메리카 중앙과 동부의 얼음 지역이 연합한, 네 번째 빙하 지대가 남쪽으로 눈에 띄게 확장되었고; 가장 멀리 뻗어나갔을 때에는 남부 일리노이까지 이르렀으며, 미시시피 강을 서쪽으로 50마일 이동시켰고, 동쪽으로는 오하이오 강 남쪽 끝과 펜실베이니아 중앙까지 확장되었다.

61:7.3 (701.2) 아시아에서는 시베리아 얼음 층이 남쪽 끝까지 침투하였고, 반면에 유럽에서는 알프스 산맥의 방해로 얼음 층이 확장되지 못하였다.

61:7.4 (701.3) 500,000년 전에, 다섯 번째 빙하 확장이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인류의 진화에 새로운 변화가 가속적으로 일어났다. 토착 인류 종족으로부터 갑자기 그리고 같은 세대 속에서 여섯 가지 색깔의 종족들이 변이 되어 나타났다. 이 시기는 이중으로 중요한 기간이었는데, 이 때 행성영주가 도착하였기 때문이다.

61:7.5 (701.4) 북아메리카에서는, 다섯 번째로 확장된 빙하는 세 개의 얼음 층 중심지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동쪽에 있는 층은 세인트로렌스 계곡 바로 아래까지 확장되었을 뿐이고, 서쪽에 있는 얼음 층은 남쪽으로는 거의 확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에 있던 얼음 층은 남쪽으로 확장되어 아이오와 주 대부분을 뒤덮을 정도였다. 유럽에서는 이 얼음 층의 침해가 전에 있었던 것만큼 확장되지 못하였다.

61:7.6 (701.5) 250,000년 전에, 여섯 번째이며 마지막의 빙하 현상이 시작되었다. 북쪽에 있는 고지대가 이미 약간 침수되기 시작했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에 북쪽에 있는 얼음 지대 위에는 가장 많은 눈이 쌓인 때였다.

61:7.7 (701.6) 이 침해 기간에 세 개의 거대한 얼음 층들이 하나의 광대한 얼음 덩어리로 합쳐졌으며, 서쪽에 있는 모든 산들은 이 빙하 활동에 동참하였다. 북아메리카에 있었던 모든 빙하 침투 현상들 중에서 이번의 경우가 가장 컸으며; 그 얼음 층은 압력이 작용하는 중심지역으로부터 1500마일 이상 남쪽으로 이동하였고, 북아메리카의 온도는 가장 낮은 상태를 체험하게 되었다.

61:7.8 (701.7) 200,000년 전에, 마지막 빙하가 진행되는 동안에, 유란시아의 사건의 행진에서 많은 것을 했던 하나의 에피소드—루시퍼의 반란—이 발생했다.

61:7.9 (701.8) 150,000년 전에, 여섯 번째의 마지막 빙하가 남쪽으로 가장 먼 지점까지 확장되었으며, 서쪽에 있는 얼음 층은 캐나다 접경 지역을 넘어섰고; 중앙에 있는 얼음 층은 캔자스, 미주리, 그리고 일리노이까지 내려왔으며; 동쪽에 있는 얼음 층은 남쪽으로 확장되어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 대부분을 뒤덮었다.

61:7.10 (701.9) 바로 이 빙하가, 혀 모양의 긴 형태 또는 둥근 모양의 얼음 층을 앞으로 밀어 보내서, 지금-현재 볼 수 있는 크고 작은 호수들을 만들었다. 이 빙하가 퇴각하는

동안에 북아메리카에 있는 5대호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유란시아에 있는 지질학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발달 단계들을 매우 정확하게 추론하였으며, 이러한 많은 양의 물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처음에는 미시시피 계곡으로 흘러들었고, 그 다음에는 동쪽으로 흘러 허드슨 계곡에 들어갔으며, 마지막으로 북쪽 길을 통하여 세인트로렌스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추론해 내었다. 오대호가 현재의 나이아가라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지 37,000년이 지나갔다.

61:7.11 (702.1) 100,000년 전, 마지막 빙하가 퇴각하는 동안에, 극지방에 있는 거대한 얼음 층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축적된 얼음 층 중심부는 상당히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극지방이 계속 얼음으로 덮여 있는 한, 그리고 장차 육지가 더 융기되거나 해류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빙하기가 발생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61:7.12 (702.1) 마지막으로 있었던 이 빙하기는 100,000년 동안 확장되었으며, 북쪽으로의 퇴각이 완료되기까지 비슷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50,00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온화한 지역들이 그 얼음 층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남아 있었다.

61:7.13 (702.1) 혹독한 빙하시대로 인하여 많은 종류의 생명들이 멸종되거나 수많은 다른 형태로 신속히 변화되었다. 많은 종류들은 확장과 축소를 거듭하는 얼음 층에 대처하기 위하여 왔다 갔다 하는 이주 과정을 통하여 심하게 도태되었다. 이동하는 빙하를 따라서 온 땅에 퍼진 동물들 중에는 곰, 들소, 순록, 사향소, 맘모스, 그리고 매스토돈 등이 있었다.

61:7.14 (702.1) 맘모스는 개활(開豁) 목초지를 찾아다녔지만, 매스토돈은 삼림 지역으로 보호된 변두리를 더 좋아하였다. 맘모스는 상당히 후기까지 멕시코로부터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시베리아에 있는 종류는 털로 뒤덮이게 되었다. 후대에 백인종에 의해서 들소가 죽은 것처럼, 매스토돈은 홍인종에 의해서 멸종되었다.

61:7.15 (702.1) 북아메리카에서는, 마지막 빙하시대 동안, 말과 맥 그리고 하마와 송곳니가 있는 호랑이가 멸종되었다. 그

대신에 나무늘보, 아르마딜로, 그리고 물에 사는 돼지 종류들이 남아메리카에서 북상하여 그 자리를 메웠다.

61:7.16 (702.1) 빙하가 확장되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생명의 이주는 식물들과 동물들을 특이하게 혼합시켰으며, 마지막 빙하 침해가 물러가면서, 북극 지방에 서식하던 많은 종류의 식물들과 동물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어떤 높은 산봉우리들 속에 남아있게 되었으며, 그것들은 빙하에 의해서 파멸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어디든지 떠나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된 이 식물들과 동물들은 유럽에 있는 알프스 지역의 높은 곳과 심지어는 북아메리카의 아팔라치아 산맥에서 오늘날에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61:7.17 (702.1) 빙하기는 소위 홍적세(洪績世)라고 불리며 2백만 년의 기간에 이르는 마지막 지질 시대를 장식하였다.

61:7.18 (702.1) 35,000년 전에, 지구 극지방들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대(大)빙하기는 막을 내렸다. 그리고 이 시기가 또한 의의(意義)깊은 이유는 물질아들과 딸이 도착된 시기가 다가왔으며 아담의-섭리시대가 시작된 때이고

완신세(完新世) 또는 빙하기 후대 기간의 시작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61:7.19 (702.1) 포유류 생명이 발생한 때로부터 빙하기 퇴각한 시대까지 그리고 역사적인 시기에 이르는 이 이야기는 거의 5천만 년에 이르는 기간에 관한 것이었다. 이 기간은 마지막—현재의—지질 시대에 해당되며 너희 연구자들에게는 신생대 또는 근세(近世)라고 알려져 있다.

61:7.20 (702.1) [거주하는 생명운반자에 의해서 후원되었음]

제 62 편 여명의 초기 사람 종족

62:0.1 (703.1) 약 백만 년 전에, 태반을 가진 포유류인 여우원숭이의 초기 군체(群體)로부터 분기되어진 세 차례의 연속적이고 갑작스러운 돌연변이에 의해서 인류의 직계 조상이 나타났다. 이 초기 여우원숭이들의 우세한 유전인자들은 진화하는 생명 원형질의 서부 계통 곧 후대의 아메리카 계통으로부터 유래되었다. 그러나 인간 조상의 직접적인 계통이 형성되기 전에, 이 혈통은 아프리카에서 진화된 중앙 생명 이식으로부터 받은 기여로 강화되었다. 동부의 생명 집단은 인간 종족의 실재적인 산출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였다.

제 1 장. 초기 여우원숭이 유형

62:1.1 (703.2) 인간 종족들의 선조에 관계되는 초기 여우원숭이들은, 그 당시에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에 살고 있었으며 후손이 오늘날에도 생존하고 있는 긴팔원숭이와 꼬리없는 원숭이의 선재하던 종족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것들은 현대적 유형의 여우원숭이의 후손도 아니고, 둘 모두가 공통 조상에서 발생되기는 하였으나 그 조상은 오래 전에 멸종되었다,

62:1.2 (703.3) 이러한 초기 여우원숭이들이 서반구(西半球)에서 진화했던 반면, 인류의 직접적인 포유류 조상은 남서부 아시아, 중앙 생명체 이식의 근원 지역 에서 그러나 다만 동부 영역들의 경계선에서 발생되었다. 수백만 년 전에 북아메리카 유형의 여우원숭이들은 베링 반도를 지나 서쪽 방향으로 이주하였으며 아시아 해안을 따라 남서쪽으로 서서히 이동하였다. 이주하던 이 종족들은, 그 당시에 확대되어 있었던 지중해와 인도 반도의 융기되는 산악 지대 사이에 있는 기후 좋은 영역에 마침내 도착하게 되었다. 인도 서쪽에 있는 이 땅에서 또 다른 그리고 유리한 종족들과 연합하였고, 그리하여 인간 종족의 조상을 형성하게 되었다.

62:1.3 (703.4) 시간이 지나면서 산악 지대의 남서쪽에 있는 인도 해안선이 점차적으로 침수되었고, 이 지역의 생명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북쪽을 제외하고는 메소포타미아, 곧 페르시아 반도인 이곳으로 혹은 이곳에서 들어가거나 나갈 수 있는 큰길이 전혀 없었고, 그것도 빙하지대가 남쪽으로 확장됨으로써 반복적으로 단절되었다. 당시에 거의 파라다이스와 같은 쾌적한 지역 안에서, 그리고 이 여우원숭이 유형의 포유류에서의 우월한 후손들로부터 위대한 두 집단, 현대의 유인원 종족과 지금-현재의 인류종족이 솟아났다.

제 2 장. 시조(始祖) 포유동물

62:2.1 (703.5) 백만 년 전보다 약간 더 전에, 메소포타미아의 시조 포유동물들, 태반을 가진 포유류 유형의 북아메리카 여우원숭이의 직계 후손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것들은 활동적이고 크기가 3피트에 이르는 작은 창조체들이었다; 그것들은 습관적으로 뒷다리를 사용하여 걷지는 않았지만, 쉽게 똑바로 설 수 있었다. 그것들은 털이 많았고 민첩하였으며 원숭이처럼 소리를 냈지만, 유인원 종족과는 달리 고기를 먹었다. 그것들은 다른 손가락들과 마주볼 수 있는 원시형태의 엄지손가락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잡을 수 있도록 매우 유용한 긴 발가락을 갖고 있었다. 이 때 이후로 인간-이전(以前)족들은 마주 볼 수 있는 엄지손가락이 계속적으로 발전되었고 반면에 큰 발가락의 잡을 수 있는 힘은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다. 보다 후대의 원숭이 종족들은 잡을 수 있는 큰 발가락을 갖게 되었지만 인간 유형의 엄지손가락을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62:2.2 (704.1) 이 시조 포유동물들은 3살 또는 4살이 되었을 때 충분히 성숙한 상태가 되었고, 평균적으로 가능한 수명은 약 20년이였다. 대개 한 마리의 새끼를 낳았지만, 쌍둥이가 태어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62:2.3 (704.2) 새로운 이 종족의 구성원들의 몸체에 대비한 뇌의 크기는, 그 때까지 지구 위에 존재하였던 종족들 중에서 가장 컸다. 그것들은 감정을 상당히 느낄 수 있었고 후대의 원시인의 특성인 수많은 자연본능들을 보유하였으며, 호기심이 많았고 무슨 일이든 성공했다 싶을 때에는 상당히 의기양양해 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식욕과 성욕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고, 명확한 성(性)적 선택이 원시 형태의 구애 동작과 상대방 선정을 통해 현시되었다.

그것들은 혈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격렬하게 싸우려고 하였으며 가족 관계에서는 매우 부드러웠고, 수치심과 후회의 감정에 가까운 자아-비하의 감각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것들은 매우 애정이 깊었고 동료들에게 감동적으로 충성스러웠지만, 환경에 의해서 분리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상대방을 찾으려고 하였다.

62:2.4 (704.3) 그것들은 키가 작았고, 서식하고 있는 숲에 위험이 닥쳐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예리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비상하게 개발되고 지혜로운 예방 대책을 갖게 되어, 살아남는데 막대한 기여를 하였으며, 그 한 예로 그것들은 높은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지어, 땅 위에 있는 생명이 당하는 위험을 많이 제거할 수 있었다. 인류가 공포심을 갖는 성향은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이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62:2.5 (704.4) 이러한 시조 포유동물들은 전에 나타났던 것들보다 부족정신을 발달시켰다. 그것들은 집단을 이루려는 성향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의 평범한 추구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해로 받았을 때에는 싸우려고 하는 성향이 매우

높았으며, 충분히 화가 났을 때에는 불같은 기질을 나타냈다. 아무튼 그들의 호전적인 자연본성은 좋은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보다 우월한 집단들은 보다 열등한 이웃들과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선택적으로 살아남게 된 종족들은 점차적으로 개선되게 되었다. 그것들은 오래지 않아서 이 지역에 있는 보다 작은 창조체를 지배하게 되었고, 육식을 하지 않는 원숭이 종류의 보다 오래된 그 종족들은 거의 살아남지 못하였다.

62:2.6 (704.5) 공격적이고 크기가 작은 이 동물들은 증식되어 메소포타미아 반도에 천년 이상 동안 퍼져 있었으며, 육체 유형과 전반적인 지능이 계속 발전되었다. 다음 신(新)시대의 문을 여는 발전이 발생한 것은—유란시아에서 인간이 진화되는 과정 중에서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의 조상이 갑자기 파생된—, 가장 발전된 여우원숭이 조상의 유형으로부터 기원된 새로운 이 종족이 나타난 후로 70세대가 지난 후였다.

제 3 장. 중간-포유동물들

62:3.1 (704.6) 시조 포유동물들 생애의 초기에, 민첩한 이 창조체들의 나무 꼭대기 거처에서 우월한 한 쌍의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는 암컷이고 다른 하나는 수컷이었다. 그것들은 그 조상에 비하여 실제로 훨씬 잘생긴 작은 창조체이었다. 그것들의 몸에는 털이 거의 없었지만, 온화하고 일정한 기후에서 사는 때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62:3.2 (705.1) 이 새끼들은 자라서 4피트를 조금 넘는 키가 되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그들의 부모보다 컸으며, 보다 긴 다리와 짧은 팔을 갖고 있었다. 그것들은 거의 완전하게 마주볼 수 있는 엄지손가락을 갖고 있었고, 현재의 인간의 엄지손가락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하기에 아주 적합하였다. 그것들은 후대의 인간 종족들의 발과 거의 마찬가지로 걷기에 편한 발을 사용하여 똑바로 걸었다.

62:3.3 (705.2) 그들의 뇌는 인간에 비하여 열등하고 작았지만, 그들의 조상에 비해서는 매우 우월하였고 훨씬 컸다. 그 쌍둥이들은 일찍부터 우월한 지능을 나타냈고 곧 전체 시조 포유동물들의 우두머리로 인식되었고, 사회 조직과 노동의 미숙한 경제적 분할의 초기 형태를 실제로 제정하였다. 이 둘은 짝을 이루었고 곧 자기들과 거의 비슷한 21마리의 새끼를 낳았으며, 키는 4피트를 조금

넘었고 조상이 되는 종족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 새로 나타난 이 집단은 중간-포유동물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62:3.4 (705.3) 새로 나타나고 우월한 이 집단의 숫자가 크게 불어났을 때, 그야말로 냉혹한 전쟁이 일어났으며; 격렬한 그 투쟁이 끝났을 때에는, 시조 포유동물보다 먼저 있었던 그리고 조상이 되는 종족들은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숫자는 적지만 보다 힘이 세고 지능이 높은, 파생된 이 종족들은 그들의 조상을 물리치고 살아남게 되었다.

62:3.5 (705.4) 그리고 이제는 거의 15,000년 동안 (600 세대), 이 창조체는 이 지역에서 세상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전에 있었던 거대하고 공격적인 모든 동물들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이 지역에 사는 큰 짐승들은 육식 동물이 아니었고, 고양이 과(科)의 보다 큰 종들, 사자와 호랑이는 지구의 표면 중에서 특이하게 보호되고 구석진 이곳으로 아직 침입하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이 중간-포유동물들은 점점 용맹스럽게 되었고, 그들이 있던 창조계의 구석을 전체를 정복하였다.

62:3.6 (705.5) 선조 종들과 비교해 볼 때, 중간-포유동물들은 모든 면에서 진보되어 있었다. 그들의 잠재 수명도 25년 정도로 길어졌다. 새로운 이 종들에서 초보적인 여러 개의 인간적 특색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조상이 보여주었던 타고난 성향들 외에, 이 중간-포유동물들은 어떤 불쾌한 상황에 대해서 혐오감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더욱이 그들은 뚜렷한 저장 본능을 소유하였고; 나중에 먹기 위하여 음식을 감출 수 있었으며 방어와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 특정한 유형의 둥근 돌이나 부드러운 원형 자갈들을 수집하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였다.

62:3.7 (705.6) 이러한 중간-포유동물들은 처음으로 분명한 건축 성향을 나타냈는데, 나무 꼭대기에 지은 그들의 집과 구멍이 많은 지하 대피소를 경쟁적으로 만드는 것에서 잘 나타났으며; 나무 위와 땅 밑에 동시에 집을 지어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였던 최초의 포유동물 종이였다. 그들은 나무들을 서식지로서 거의 저버렸다, 낮에는 땅 위에 있었고 밤에만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잠을 잤다.

62:3.8 (705.7) 시간이 흘러가면서, 숫자가 자연적으로 증가하여 결국에는 심각한 양식 경쟁과 성(性)적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최고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 서로 죽이는 전쟁이 여러 차례 일어났고 거의 모든 종족이 멸절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투쟁은 100마리도 채 못 되는 한 집단이 남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평화가 다시 한 번 이루어졌고, 자기들만 살아남게 된 이 종족은 나무 위에 새로운 잠자리를 마련하였으며 다소 평화로운 정상적인 생활을 재개하게 되었다.

62:3.9 (705.8) 인간-이전(以前)족의 너희 조상들이 때때로 소멸을 모면했던 그렇게 좁은 경계선들을 너희는 거의 깨닫기가 어려울 것이다. 모든 인간성의 조상이 되는 개구리가 어떤 특정한 기회에 2인치 조금 덜 뛰었다면, 진화의 전 과정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시조-포유동물 종족의 직계 여우원숭이 모습의 어미는 보다 발전된 새로운 포유동물 계층의 조상을 낳기 전에 다섯 차례 이상 아주 아슬아슬하게 죽음을 모면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은 영장목 쌍둥이를 낳게 될 그 어미가 자고 있던 나무 위에 벼락이 떨어졌을 때였다. 중간-포유동물인 이 동물 부모는 깊은 충격을 받았고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일곱 마리의 새끼들 중에서 세 마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이 벼락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

이들 진화하는 동물들은 거의 제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나무 꼭대기의 집이 부서진 이 부부는 중간-포유동물 종들 중에서 더 많이 진보된 집단의 실제적인 영도자였으며; 더욱 발달된 지능을 가진 집단들을 포함하여 반 이상의 종족이 그들을 본받아서 이 지역으로부터 2마일 가량 이동하였고 새로운 나무 꼭대기의 거주지들과 땅 밑의 은신처들—갑작스러운 위험에 대비한 과도기적인 대피소—을 짓기 시작하였다.

62:3.10 (706.1) 집을 다 짓고 난 직후에, 수많은 분투를 통하여 노련한 체험을 가진 이 부부는 자랑스러운 두 쌍둥이를 낳게 되었고, 그것들은 그 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동물들이었는데, 왜냐하면 인간-이전(以前)족의 진화에 있어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를 제공하는 최초의 새로운 종의 영장목이었기 때문이다.

62:3.11 (706.2) 이 영장목 쌍둥이의 탄생과 동시에, 다른 부부—중간-포유동물 종족 중에서 특별히 지능이 떨어지는 수컷과 암컷,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저능한 부부—도 역시 쌍둥이를 낳았다. 암 수 한 쌍의 이

쌍둥이는 정복하는 일에는 무관심하였고; 먹이를 찾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으며, 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먹이를 찾는 일에 곧 모든 흥미를 잃게 되었다. 지능이 떨어지는 이 쌍둥이들은 오늘날 유인원의 시조가 되었다. 그 후손들은 온화한 기후와 열대성 과일들이 풍성한 따뜻한 남쪽 지역을 찾아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그들은 초기 유형의 긴팔원숭이와 꼬리 없는 원숭이와 섞인 것들을 제외하고는 종족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었으며, 결국 크게 열등한 상태가 되었다.

62:3.12 (706.3) 그러므로, 사람과 원숭이는 중간-포유동물, 그 종족에서 동시에 태어났고 나중에 서로 두 쌍의 쌍둥이들로의 분리가 발생하였던 종족하고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열등한 쌍은 현대적 유형의 원숭이, 개코 원숭이, 침팬지, 그리고 고릴라로 변하였고; 우월한 쌍은 인간으로 진화하는 향상되는 계통으로 계속 발전되었다.

62:3.13 (706.4) 현대적 인간과 유인원(類人猿)은 같은 종류와 종족으로부터 유래되었지만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아니었다. 사람의 조상은 중간-포유류 종족으로부터

도태되어 남은 우월한 혈통으로부터 내려왔고; 반면에 현대적 유인원 종류는 (이미 있었던, 여우원숭이, 긴팔원숭이, 꼬리 없는 원숭이, 그리고 원숭이처럼 생긴 다른 동물들의 특정한 유형들을 제외하고) 중간-포유동물 집단 중에서 가장 열등한 한 쌍, 마지막으로 있었던 자기 종족들 간의 격렬한 전투가 있는 동안 2주 이상 지하에 있는 음식을 보관하는 대피소에 숨어 있다가 전쟁 상태가 모두 끝난 후에 밖으로 나와 유일하게 생존되게 된 그 동물들의 후손으로부터 연유되었다.

제 4 장. 영장류

62:4.1 (706.5) 우월한 쌍둥이가 태어나던 때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중간-포유동물 종족의 인도하는 두 명의 구성원, 한 수컷과 한 암컷에 이르게 된다; 이들 새끼 동물들은 특이한 계층 이었다; 부모들보다도 몸에 털이 적게 있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똑바로 일어서서 걸었다. 그들의 조상들은 뒷다리로 걷기 위하여 배워야 했지만, 이 영장목 쌍둥이는 처음부터 똑바로 설 수 있었다. 그것들의 키는 5피트를 약간 넘었고, 같은 종족의 다른 동물들에 비하여 머리가 더 크게 자랐다. 신호와 소리를 통하여 서로

교통하는 것을 일찍부터 배웠지만, 새로운 이 신호들을
무리들에게 납득시킬 수는 결코 없었다.

62:4.2 (707.1) 약 14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종족으로부터
도망쳤고, 서쪽으로 이동하여 부족을 이루었으며 새로운
영장목 종족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이
창조체들을 영장목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적당한
표현인데 왜냐하면 이것들은 인간 가계 자체의 직접적인
직계 동물 조상이었기 때문이다.

62:4.3 (707.2) 그리하여 영장목은 그 당시에 남쪽 바다로 뻗어
나온 메소포타미아 반도의 서쪽 해안에 있는 지역을
점유하게 되었으며, 반면에 비교적 지능이 낮은 종족과
그것에 가깝게 관련된 종족들은 반도 끝 부분과 동쪽
해안선에 살고 있었다.

62:4.4 (707.3) 영장목은 그들의 조상인 중간-포유동물보다 더
인간에게 가까웠고 동물과는 덜 닮았다. 새로운 이 종족의
골격 구조는 원시 인간 종족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였다.
손과 발은 인간과 거의 같은 유형으로 발달되었고, 그
창조체는 후대의 인간들 후손과 마찬가지로 걸을 수
있었고 심지어는 뛸 수도 있었다. 그것들은 전에 있던

그들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공포심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밤이 되면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여전히 나무 꼭대기에서 잠을 잤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나무에서 내려와 살았다. 점점 더 손을 많이 사용하면서 선천적인 두뇌 힘이 많이 개발되었지만, 실제로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 마음은 아직 소유하지 못하였다.

62:4.5 (707.4) 영장목은 감정적인 자연본성에 있어서는 그 조상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지만, 그들의 모든 성향은 보다 인간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그것들은 정말로 찬란하고 우월한 동물들이었으며, 10살 정도가 되면 성숙한 상태가 되었고 자연적인 평균 수명은 40년 정도였다. 그것들이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기간 동안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원시 시대에 자연적인 수명을 다 사는 동물들은 극히 드물었다; 전체적으로 생존을 위한 투쟁이 너무 격렬하였다.

62:4.6 (707.5) 그리고 이제, 시조 포유동물이 기원된 이후로 약 21,000년에 이르는, 거의 900 세대에 이르는 발달 기간이 지난 후에, 영장목은 갑자기 현저하게 다른 두 명의 창조체들, 최초의 진짜 인간 존재들을 탄생시켰다.

62:4.7 (707.6) 그리하여, 북아메리카 여우원숭이 유형에서 발생한 시조 포유동물로부터 중간-포유동물이 기원되었고, 다시 이 중간-포유동물은 원시 인간 종족의 직계 조상인, 우월한 영장목을 발생시켰다. 영장목 종족들은 인간 진화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연결고리였지만, 비범한 이 종족들은 5,000년이 지나기 전에 모두 멸종되었다.

제 5 장. 최초의 인간

62:5.1 (707.7) 서기 1934년을 기점으로 하여 꼭 993,419년 전에 최초의 인간들 두 사람이 태어났다.

62:5.2 (707.8) 특출한 이 두 창조체는 완전한 인간이었다. 그들의 엄지손가락은 그들의 몇 대조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인간과 똑같았고, 그들의 다리는 지금-현재의 인간 종족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들은 기어 다니지 않았고 걷거나 뛰어다녔으며; 긴 발가락의 움켜잡는 기능은 없어져, 완벽하게 없어져버렸다. 위험이 닥쳐서 나무 꼭대기로 피할 때에는, 오늘날 인간이 기어오르는 것과 똑같이 하였다. 그들은 나무 위로 올라갈 때, 나뭇가지를

잡고 흔들면서 올라가는 침팬지나 고릴라처럼 하지 않고
곰처럼 나무 등치를 잡고 올라갔다.

62:5.3 (708.1) 최초의 이 인간 존재들은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12살이 되었을 때 충만한 성인이 되었고
잠재적인 수명은 약 75년에 이르렀다.

62:5.4 (708.2) 이 인간 쌍둥이에게는 일찍부터 새로운 감정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들은 사물들과 다른 존재들 모두에
대하여 감탄하는 감정을 체험하였고 상당한 허무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감정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진전은, 진정으로 인간 감정의 새로운 집합들,
경배에 찬 집합, 경외심, 존경심, 겸손함, 그리고 심지어는
원시 형태의 감사까지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다. 자연
현상들에 대한 무지와 관련된 두려움은 장차 원시 형태의
종교가 발생되게 하였다.

62:5.5 (708.3) 이들 원시 인간들에 현시된 그러한 인간적
감정들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높은 수준으로 진화된
정서들도 초보적인 형태로 출현하게 되었다. 그들은
동정심과 부끄러움 그리고 치욕감을 약간 인식할 수
있었고, 사랑과 미움 그리고 복수심을 정확하게

인식하였으며, 현저한 질투심의 감정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62:5.6 (708.4) 최초의 이 두 인간들—쌍둥이—은 그들의 영장목 부모들에게 큰 걱정거리였다. 그들은 너무나 호기심이 강하고 모험심이 많았으므로, 그들이 8살도 되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였다. 사실, 그들이 12살이 되었을 때에는 아주 상처투성이 이었다.

62:5.7 (708.5) 그들은 매우 일찍부터 말로 교통하는 방법을 익혔으며; 10살이 되었을 때에는 약 50여 가지에 이르는 관념들에 대한 개선된 신호와 단어언어를 만들었고 그들의 선조들의 교통할 수 있는 미숙한 기법을 개발하고 확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자기 부모들에게는 새로운 신호들과 기호들 중에서 일부분밖에 가르칠 수 없었다.

62:5.8 (708.6) 9살 정도가 되었을 때, 어느 청명한 날, 그들은 강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여행하였고 중대한 의논을 하게 되었다. 유란시아에 배치된 천상(天上)의 모든 지능 존재들은, 나 자신을 포함하여, 한낮의 이 밀회에서의 활동행위들을 지켜보는 관찰자로 거기에 있었다. 사건

많은 이 날에, 그들은 함께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납득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마침내 자신들의 열등한 동물적 연관-동료들로부터 도망쳐서 북쪽으로 여행하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도록 한 여러 차례의 합의들 중에서 첫 번째로 일치된 의견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 종족의 시초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62:5.9 (708.7) 우리 모두가, 조그마한 이들 두 미개인들이 계획하는 것에 대하여 큰 관심을 두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없었다; 우리는 그들의 결정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줄 수 없었다. 그러나 행성 기능의 허용 한계들 안에서, 생명운반자들인 우리들 모두는 우리 연관-동료들과 함께 그 쌍둥이 인간들을 북쪽으로, 그리고 털이 많고 부분적으로 나무 위에서 사는 무리들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유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그들 자신의 지능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쌍둥이는 이주하게 되었고, 우리들의 감독에 의해서 그들은 북쪽으로 이주하여, 영장목 종족에 속하는 그들의 열등한 친척들과의 섞임을 통하여 두루 생물학적으로

퇴화될 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외딴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다.

62:5.10 (708.8) 그들이 고향 삼림으로부터 떠나기 직전에, 긴팔원숭이들의 습격을 받아 그들의 어머니가 목숨을 잃었다. 그 어머니는 그들과 같은 지성은 갖고 있지 못하였지만, 자기 자손들을 위하여 포유류가 갖는 높은 차원의 훌륭한 애정을 소유하고 있었고, 훌륭한 그 쌍둥이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담하게 바쳤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희생은 헛된 것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그녀는 그의 남편이 지원군들과 함께 도착하여 침입자들을 쫓아낼 때까지 적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62:5.11 (709.1) 이 젊은 부부가 인간 종족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기 연관-동료들을 저버린 직후에, 그들의 영장목 아버지는 우울증에 빠졌다—그는 비탄에 잠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다른 자녀들이 음식을 가져왔을 때에도 먹지 않으려고 하였다. 자신의 영리한 자식을 잃게 되자, 평범한 자기 동료들 속에서 산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듯이 보였으며; 그리하여 그는 숲 속에 들어가 방황하다가 호전적인 긴팔원숭이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죽었다.

제 6 장. 인간 마음의 진화

62:6.1 (709.2) 유란시아에 있는 생명운반자들인 우리는, 우리가 처음으로 생명 원형질을 지구에 있는 물속에 심었던 날로부터 주의 깊게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감시하는 과정을 지내왔으며, 자연적으로 나타난 최초의 실제적인 지능 존재이자 의지적인 존재들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엄청난 기쁨과 최극의 만족감을 가지게 되었다.

62:6.2 (709.3) 우리가 지구에 도착하였을 때 유란시아에 배정된 일곱 개의 보조 마음-영들의 기능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우리는 그 쌍둥이의 정신적인 발전 과정을 계속 지켜보았다. 행성 생명의 긴 진화 발전 과정에 두루, 지칠 줄 모르는 이 마음 사명활동자들은 점차적으로 우월해지는 동물 창조체들의 연속적으로 수용 능력이 확대되는 두뇌와 접촉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능력을 계속하여 점점 더 키워나갔다.

62:6.3 (709.4) 처음에는 원시 동물 생명의 본능적이고 반사적인 행위에 직관의 영만이 기능할 수 있었다. 더 높은 형태들의 다양화로, 납득의 영은 관념들의 임의적인 관계적-연합이라는 선물을 그러한 창조체들에게 자질로서 부여할

수 있었다. 그 후에 우리는 용기의 영이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진화하는 동물들은 방어적인 자아-의식의 미숙한 형태를 실제로 개발하였다. 포유류가 출현한 이후로, 우리들은 지식의 영이 점점 더 많이 현시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발전된 포유류의 진화에 의해서, 원시적인 사회형태의 개발과 집단 본능이 커진 결과로, 조언의 영이 작동되게 되었다.

62:6.4 (709.5) 시조 포유동물과 중간-포유동물 그리고 영장목으로 발전되면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보조 영들의 점점 더 증강된 봉사 활동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가장 높은 마음 사명활동자들인 나머지 두 가지가 유란시아 형태의 진화적인 마음에 기능될 수 없었다.

62:6.5 (709.6) 경배의 영이, 쌍둥이 중에서 처음에는 여자의 마음과, 그리고 바로 직후에는 남자의 마음과 접촉을 이루게 된 그 날—쌍둥이의 나이가 열 살 정도였다—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상상해 보라. 우리는 인간 마음과 아주 가깝게 동족이 된 어떤 것이 최고점에 도달하였음을 알았고; 약 1년쯤 뒤에, 그들이 최종적인 결심을 하게 되었을 때, 집으로부터 떠나

북쪽으로 가겠다는 심사숙고한 생각과 목적이 분명한 결정을 내린 결과로, 그 때부터 지혜의 영이 유란시아에서 그리고 이제 인간 마음들을 인지하게 된 이 두 사람 속에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62:6.6 (709.7) 일곱 보조 마음-영들이 동원되는 직계의 그리고 새로운 체제가 존재하게 되었다. 우리는 기대감으로 충만 되어 있었다; 오랫동안-기다려왔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유란시아에서 의지적 창조체들을 진화시키려는 우리들의 길고 긴 노력의 실현이 문턱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제 7 장. 거주민이 사는 세계로 인정됨

62:7.1 (709.8)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 쌍둥이들이 도망친 하루 뒤 정오에, 유란시아의 행성 접수-초점에 우주 순환회로 신호들의 시험적인 초기 섬광이 발생하였다. 물론 우리들은 어떤 거대한 사건이 임박하고 있는 그 실현과 함께 모두가 들떠 있었다; 이 세계가 생명-실험실이었기 때문에, 지구 위에 있는 지능 생명에 대한 인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통고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미결된 상태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 쌍둥이들이 가출한지 삼 일째 되던 날, 그리고 생명운반자 무리단이 떠나기 전에, 초기 행성 순환회로를 설립하는 네바돈의 천사장이 그곳에 도착하였다.

62:7.2 (710.1) 유란시아에 사건 많은 날이었던 그 날, 적은 숫자의 우리들은 우주 통신이 이루어지는 행성 극점(極點) 근처에 모였으며, 지구에 새롭게 설립된 마음 순환회로에 대하여 구원자별로부터 첫 번째 소식이 접수되었다. 그리고 최초의 이 메시지는 천사장 무리단의 우두머리에 의해서 읽혀졌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62:7.3 (710.2) “유란시아에 있는 생명운반자들에게—인사의 말을 전한다! 의지 존엄의 마음이 유란시아에 실존하게 되었다는 신호가 네바돈의 본부에 등록된 것을 축하하면서 구원자별과 에덴시아 그리고 예루셈에 큰 기쁨이 넘치고 있음을 확실하게 전한다. 그 쌍둥이들이 북쪽으로 도피하고 그들의 열등한 조상들로부터 그들의 자손을 격리시키려는, 목적의식이 있는 결정이 감지되었다. 이것은 유란시아에 있어서 첫 번째의 마음의 결정—인간 유형의 마음—이었으며, 이를 인정하는 이 첫

메시지가 전달되는 통신 순환회로를 자동적으로 설치한다.”

62:7.4 (710.3) 그 다음에는 새로운 이 순환회로를 타고 에덴시아의 지고자로부터, 우리가 정착시켰던 생명 원형틀에 우리, 곧 이곳에 거주하는 생명운반자들이 간섭하지 말라는 지시가 포함된, 축하 인사가 도착되었다. 우리는 인간의 진보에 관한 관련사들 안에 간섭하면 안 된다고 지시를 받았다. 생명운반자들은 행성 진화 계획들의 자연적인 진행에 독단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언제까지나 끼어든다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까지, 우리는 환경을 조절해도 좋다는 것과, 특별한 방법으로 생명 원형질을 보호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있으며, 그것은 보통과는 다른 감독체제이기는 하였지만 전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언젠가는 중단되게 되어 있었다.

62:7.5 (710.4) 그리고 지고자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당시에 사타니아 체계의 주권자인 루시퍼로부터 아름다운 메시지가 행성에 전달되었다. 이제 그 생명운반자들은 그들의 우두머리로부터 환영의 인사를 들었고 예루셈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의 허락을 받았다. 루시퍼가 보낸 이 메시지에는 유란시아에서의 생명운반자들의 역할에 대해 공식적으로 승인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사타니아 체계에 설립된 것처럼 네바돈의 생명 원형들들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들이 수고하였던 것들에 대한 장래의 모든 비평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주었다.

62:7.6 (710.5) 구원자별과 에덴시아 그리고 예루셈으로부터 온 이 메시지들은, 행성에 대한 오랜 동안의 생명운반자들의 감독을 공식적으로 종결시켰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들은 의무에 충실하였고, 오직 일곱 보조 마음-영들과 주(主)물리통제자들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는 의지, 경배를 드리고 상승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행성의 진화적 창조체들에게 나타났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완결되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 집단들은 떠날 준비를 하였다. 유란시아는 생명-변형의 세계이기 때문에, 생명운반자들 중에서 선임자 둘이 열 두 보좌관들과 함께 남아 있어도 좋다는 허락이 내려졌으며, 나는 이 집단들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고 그 후로 항상 유란시아에 남아 있다.

62:7.7 (710.6) 유란시아가 네바돈의 우주에 인간이 살고 있는 행성으로 공식적으로 인식된 것은 (서기 1934년으로부터) 정확하게 993,408년 전이었다. 생물학적인 진화가 의지 존귀성을 갖는 인간 차원을 다시 한 번 성취하였다; 사타니아에 있는 606번 행성에 사람이 도착한 것이다.

62:7.8 (710.7)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네바돈의 생명운반자에 의해서 후원되었음]

제 63 편 최초의 인간 가족

63:0.1 (711.1) 유란시아는 최초의 두 인간들—쌍둥이—이 11살이 되었을 때, 그리고 실재 인간존재의 두 번째 세대인 그들의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거주민이 사는 세계로 등록되었다. 그리고 이 행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구원자별로부터 천사장이 보낸 메시지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었다:

63:0.2 (711.2) “사람-마음이 사타니아의 606번 행성에 나타났고, 새로운 종족의 부모들은 이름이 안돈과 폰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천사장들은, 이들 창조체에게 우주 아버지의 영의 선물의 개인적 내주함이 속히 자질로서 부여되기를 바라고 있다.”

63:0.3 (711.3) 안돈이라는 이름은 “인간 완전성의 갈망을 나타내는 최초의 아버지다운 창조체”를 의미하는 네바돈에서 사용되는 이름이다. 폰타는 “인간 완전성의 갈망을 나타내는, 최초의 아들다운 창조체”를 의미한다. 안돈과 폰타는 자기들에게 이러한 이름들이 붙여져 있었다는 사실을, 자기들의 생각 조절자들과 융합될 때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필사자로서 유란시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서로 부른 이름은 손타-안과 손타-엔이었는데, 손타-안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고, 손타-엔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이러한 이름을 붙였으며, 그 의미들은 그들의 상호 존중심과 애정을 상징하는 것이다.

제 1 장. 안돈과 폰타

63:1.1 (711.4) 여러 가지 면에서, 안돈과 폰타는 그 때까지 지구 위에 살았던 어떤 인간 존재들보다 가장 뛰어난 쌍이었다. 모든 인류의 실재적인 조상이 된 이 훌륭한 쌍은, 그들의 직계 후손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월했으며, 그들의 직계 그리고 먼 친족 조상들 둘 모두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63:1.2 (711.5) 이 최초의 인간 쌍의 부모는 비록 그들이 그들의 구성원들 중에서 보다 총명한 일원이었지만, 싸울 때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집단인 그들의 종족들과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다를 것이 없었다. 그들은 또한 날카로운 돌 바늘모양의 돌, 부싯돌 그리고 뼈를 이용하였다.

63:1.3 (711.6) 아직 부모들과 함께 살고 있었을 때, 안돈은 이미 날카로운 부싯돌 조각을 몽둥이 끝에 붙들어 매었으며, 이것을 위하여 동물의 힘줄을 이용하였고,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와 마찬가지로 모험적이고 호기심이 강하며 그가 탐험 여행을 할 때마다 반드시 그를 따라다녔던 그의 자매를 보호하기 위하여 12번 이상 그러한 무기를 사용하였다.

63:1.4 (711.7) 영장목 종족들로부터 도망치기로 한 안돈과 폰타의 결심은, 유인원 종족의 열등한 친족들과 짝을 짓는 수많은 그들의 후손들을 특징짓는 더 낮은 지능보다 훨씬 높은 마음의 본질특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히 동물보다는 어느 정도 뛰어난 존재에 대한 그들의 막연한

느낌은 개인성의 소유에 기인하였으며 그리고 생각 조절자가 내주(內住)하는 현존으로 증강되었다.

제 2 장. 쌍둥이의 도피

63:2.1 (712.1) 안돈과 폰타는 북쪽으로 도망치기로 결정한 후에, 한동안 두려움 때문에 꿈쩍도 못하였는데, 특별히 자신들의 아버지와 직계 가족들을 화나게 만들 것을 염려하였다. 그들은 적개심을 품고 있는 친척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경우를 상상해보고, 이미 그들을 시기하고 있는 부족들의 손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다. 어린아이들로서, 쌍둥이는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늘 같이 보냈으며, 이러한 이유로 영장목 종족의 그들의 동물 사촌들과 과도하게 친숙해본 적이 없었다. 또한 별도의 매우 우월한 나무 집을 지은 것으로서 종족 안에서의 그들의 입지를 개선시키려고도 하지 않았다.

63:2.2 (712.2) 나무 꼭대기에 새로 지은 바로 이 집에서, 맹렬한 태풍 때문에 그들이 잠에서 깬 어느 날 밤, 그리고 그들이 공포와 사랑의 포옹으로 껴안으면서, 그들은 부족의

거주지와 나무 꼭대기 집에서 도망치기로 마음속에 최종적으로 충분히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63:2.3 (712.3) 그들은 북쪽으로 반나절 여행할 거리에 있는 곳에 거친 나무 꼭대기의 대피소를 이미 준비해 두었다. 이것은 그들만의 비밀이었으며, 집이 있는 숲으로부터 도망친 첫 날 동안 안전하게 숨어 있을 수 있는 장소였다. 영장목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쌍둥이들도 밤중에 땅 위에 머무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두워지기 직전에 북쪽을 향한 긴 여행을 시작하였다. 비록 보름달이 비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한밤중에 길을 떠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비상한 용기를 요하는 것이었고 한편, 그들은 그들의 부족들과 친척들이 추격하더라도 오히려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올바른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미리 예정한 곳에 도달할 수 있었다.

63:2.4 (712.4) 북쪽으로 여행을 하던 중에 그들은 노출된 부싯돌 퇴적층을 만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용도에 알맞은 모양의 돌들을 많이 찾았으며, 앞으로 긴히 사용하기 위해 수집해 두었다. 특정한 목적들을 위해 보다 적당한 모양이 되도록

이 부싯돌들을 다듬다가, 안돈은 그것들로부터 불꽃이 튀는 본질특성을 발견하였고 그것으로 불을 피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기후가 온화하였기 때문에 불이 별로 필요치 않았던 그 당시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다.

63:2.5 (712.5) 그렇지만 가을의 태양은 점점 낮아지고, 그들이 점점 더 북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밤이 더욱 서늘해졌다. 그들은 이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집으로부터 떠난 지 한 달이 채 안되었을 때, 안돈은 부싯돌로 불을 피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을 자기 짝에게 내비쳤다. 그들은 부싯돌의 불꽃을 이용하여 불을 피우려고 두 달 동안 애를 썼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그들은 매일같이 부싯돌을 마찰시켰고 나무에 불을 붙이려고 애썼다. 마침내, 해가 질 무렵의 어느 날 저녁, 폰타가 근처에 있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버려져 있는 새둥지를 찾아냈을 때, 불을 붙이는 그 기법의 비밀이 풀리는 실마리가 발생되었다. 그 둥우리는 건조한 상태였고 불이 쉽게 붙을 수 있었으며, 그 위에 불꽃을 계속 튀긴 결과 어느 순간 충분히 불이 붙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성공하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여 그 불을 거의 꺼뜨릴 뻔했지만, 적당한 땀감을 더 공급하여 불이 계속 붙도록 하였고, 모든 인류의 조상이 처음으로 땀감을 수집하게 되었다.

63:2.6 (712.6) 이것은 그들의 짧지만 사건 많은 삶에서 가장 기쁜 순간들 중의 하나였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자기들이 피워 놓은 불을 바라보며 앉아있었으며 그들이 기후에 도전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남쪽 땅에 있는 자기들의 동물 친척들로부터 언제까지나 독립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발견을 이룩하였음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다. 삼 일간의 휴식과 불을 즐긴 후에, 그들은 여행을 계속하였다.

63:2.7 (712.7) 안돈의 선조인 영장목들도, 번갯불에 의해 붙은 불을 종종 간수하기는 하였지만, 그 전에 땅에 살았던 어떤 창조체도 자기 의지에 의해서 불을 피우는 방법을 터득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쌍둥이가 새둥지와 마찬가지로 마른 이끼와 다른 물질들도 불이 잘 붙는다는 사실을 익히게 된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였다.

제 3 장. 안돈의 가족

63:3.1 (713.1) 쌍둥이가 밤에 집을 떠난 지 거의 2년이 되었을 무렵에, 그들의 첫 아이가 태어났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손타드라고 붙였는데; 손타드는 유란시아에서 태어난 창조체들 중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그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에 싸여진 최초의 존재였다. 인간 종족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진화와 함께, 보다 순수한 동물 형태와는 대조적으로, 지적 계층의 마음이 점진적 발전을 특징짓는 점점 더 연약하게 태어나는 아기들을 알맞게 돌볼 수 있는 본능이 나타났다.

63:3.2 (713.2) 안돈과 폰타는 모두 19명의 자녀를 가졌으며, 거의 50여명에 이르는 손자들과 6명의 증손들의 관계적-연합을 즐기기까지 살았다. 그 가족들은 서로 붙어 있는 바위 집들, 또는 동굴 비슷한 곳에 살았는데, 그것들 중에서 세 개는 안돈의 자녀들이 부싯돌 연장으로 부드러운 석회암에 동굴 모양의 통로를 만들었으므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63:3.3 (713.3) 이러한 초기 안돈-사람들은 분명한 씨족의 영을 나타냈으며; 집단을 지어서 사냥하였고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 방황하는 법이 결코 없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고립되어 있고 독특한 집단을 이루며 사는 존재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 헤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듯이 보였다. 이러한 긴밀한 친족관계로서의 감정은 의심할 여지없이 보조 영들에 의한 증진된 마음 사명활동으로부터 기인된 것이었다.

63:3.4 (713.4) 안돈과 폰타는 가족들을 양육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였다. 그들은 42살까지 살았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위에 있는 바위가 떨어짐으로써 둘 모두 죽게 되었다. 5명과 자녀들과 11명의 손자들이 그들과 함께 죽었으며, 거의 20명의 자손들도 심한 부상을 입었다.

63:3.5 (713.5) 부모를 잃게 된 손타드는, 발에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부족을 지도하였으며 제일 나이가 많은 여동생인 자기 부인의 훌륭한 내조를 받았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돌을 굴려서 그들의 부모와 형제자매들 그리고 자녀들의 시신을 잘 매장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매장 행동에, 부적당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죽은 뒤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관념은, 그들에게 매우 모호하고 불확실하였으며, 주로 그들의 환상적이고 다채로운 꿈속의 생활로부터 유래한 것이었다.

63:3.6 (713.6) 안돈과 폰타의 가족은 20번째 세대가 이어질 때까지 이렇게 같이 살았으며, 그 후부터는 양식을 얻기 위한 경쟁과 사회적인 마찰이 병합되어 가면서, 이에 따라 분산이 시작되게 되었다.

제 4 장. 안돈의-씨족들

63:4.1 (713.7) 원시인—안돈-사람들—은 검은 눈과, 노란 색과 붉은 색 사이의 혼합인 가무잡잡한 피부를 갖고 있었다. 멜라닌은 모든 인간들의 피부에서 발견되는 일종의 색소이다. 그것이 안돈의-피부 색소이다. 일반적인 용모와 피부색에서, 이러한 초기 안돈-사람들은 지금-현재 살고 있는 어떤 인종 유형들보다도 에스키모인과 닮았었다. 그들은 추위에 견디기 위하여 동물 가죽을 사용한 최초의 창조체이었다; 그들은 지금-현재의 인간들보다 몸에 약간 털이 더 많았다.

63:4.2 (713.8) 이 초기 사람들의 동물조상들의 부족 생활은 여러 사회적인 집회들의 시작을 예시하였으며, 이 존재들의 감정이 확대되고 두뇌 힘이 증강되면서, 즉시 사회구조가 발달되었고 씨족 노동의 새로운 분할이 발달되었다. 그들은 흥내를 매우 잘 내었지만, 놀이 본능은 거의

발달되지 못하였고, 유머 감각은 전혀 없었다. 원시인들은 때때로 미소를 짓기는 하였지만, 쾌활하게 웃는 법이 없었다. 유머는 아담의-종족의 후대 유산이었다. 이 초기 인간들은 고통에 민감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진화된 필사자들 대부분의 경우와는 달리 불쾌한 환경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이를 낳는 일이 폰타와 그의 직계 자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거나 괴로운 체험이 아니었다.

63:4.3 (714.1) 그들은 경이로운 종족이었다. 남성들은 자기들의 배우자들과 자손들의 안전을 위하여 용맹스럽게 싸웠으며; 여성들은 자기들의 자녀를 위하여 애정을 가지고 헌신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애국정신은 전적으로 직계 씨족에 국한되었다. 그들은 자기 가족에게 매우 충실하였다; 자기 자녀들의 방어에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았지만, 자기 손자들을 위하여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관념은 전혀 가질 능력이 없었다. 종교의 탄생에서 필요한 모든 감정이 유란시아의 이들 원주민들에게 이미 제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타적 마음은 인간 가슴속에서 아직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다.

63:4.4 (714.2) 이 초기 사람들은 자기 동료들에 대하여 감동적인 애정을 갖고 있었고, 투박하기는 하지만 실제 우정의 관념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었다. 후대에 이르러서, 이 원시 민족들이 열등한 종족들과 끊임없이 반복하여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한 손으로는 용맹스럽게 싸우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상처를 입은 동료 전사(戰士)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투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나중에 진화되어 발전된, 가장 뛰어나고 높은 인간적 특색들 대부분은 이러한 원시적 민족들에게서 감동적으로 예견되었다.

63:4.5 (714.3) 기원적인 안돈의- 씨족은 27번째 세대가 이를 때까지 영도자관계가 잘 유지되었었는데, 손타드의 직계 후손들 중에서 남자가 태어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씨족의 통치자가 될 만한 두 사람이 최극위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게 되었다.

63:4.6 (714.4) 안돈의- 씨족들이 널리 흩어지기 전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초기의 노력으로 잘 발달된 언어가 진화되었다. 이 언어는 계속 발달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적이고 부지런하며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발명들과 환경의 적응들 때문에, 거의 매일같이 새로운 말들이 더해졌다. 그리고 이 말은 후대에 여러 색깔의 종족들이 출현하기 전까지, 유란시아의 말, 초기 인간 가족의 언어가 되었다.

63:4.7 (714.5) 시간이 흘러가면서 안돈의- 씨족들은 점점 숫자가 늘어났으며, 퍼져가는 가족들의 접촉이 마찰과 오해를 일으켰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만이 자리 잡게 되었다: 양식을 얻기 위하여 사냥을 하는 일과, 이웃 종족들의 힘에 의해서 실제로 당하거나 혹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가정되는 불공정한 행위와 무례함에 대하여 원수를 갚기 위하여 싸우는 일이었다.

63:4.8 (714.6) 가족들 간의 불화가 증대되었고, 종족들 간의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보다 유능하고 진보된 집단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계속하여 심각할 정도로 목숨을 잃어갔다. 이 손실들 중에 어떤 것들은 수정될 수 없었다; 능력과 지능의 가장 가치 있는 특성들의 어떤 것들이 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져갔다. 초기의 이 종족과 그들의 원시 문명은 씨족들 간의 이러한 끊임없는 전쟁들로 인하여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63:4.9 (714.7) 그러한 원시적 존재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열망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동물들의 후손이며, 가깝게 연관되었을 때 미개한 민족들은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시한다. 생명운반자들은 진화적인 창조체들 속에 있는 이러한 경향들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발전하는 인간존재들을 결국에는 적어도 셋으로, 그리고 많게는 여섯 가지의 독특하고도 분리된 종족들로 나뉘도록 하는 준비를 하게 되었다.

제 5 장. 안돈-사람들의 분산

63:5.1 (715.1) 초기의 안돈 종족들은 아시아 쪽으로 멀리 들어가지 못하였고, 처음에는 아프리카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당시의 지형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서서히 확장되는 세 번째 빙하에 의해서 길이 막힐 때까지 북쪽으로 점점 더 멀리 이동하였다.

63:5.2 (715.2) 확장되는 이 얼음 덩어리가 프랑스와 영국 섬들에 이르기 전까지, 안돈과 폰타의 자손들은 유럽 서쪽으로 이동하였고 그 당시에 따뜻한 물로 이루어져 있었던

북해로 나가는 거대한 강기슭을 따라서 천여 개 이상의 독립된 부락들을 이루었다.

63:5.3 (715.3) 이들 안돈의-종족들이 바로 초기에 프랑스의 강변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솜므 강변을 따라 수만 년 동안 살았다. 솜므는 오늘날과 같이 그 때에도 바다로 흘러가는, 빙하들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어 지지 않았던 하나의 강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안돈의-후손들의 많은 증거물들이 왜 이 강변 계곡 방향을 따라서 발견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63:5.4 (715.4) 유란시아의 이 원주민들은, 위험이 닥치는 경우는 여전히 나무 꼭대기로 피신하기는 하였지만,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살지는 않았다. 그들은 강을 따라 지붕처럼 생긴 절벽 밑의 은신처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접근해 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고 그들로부터 보호를 잘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 구렁지의 동굴 속에서 주로 살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연기 때문에 심한 불편을 겪지 않고 그들의 불의 위안을 즐길 수 있었다. 그 뒤에 후대의 얼음 덩어리들이 더욱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들의 자손들이 동굴 속에 거주하도록 만들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실제로 동굴

거주자도 또한 아니었다. 그들은 숲이 있는 끝자락과 강이 흐르는 옆에서 야영하는 것을 더욱 좋아하였다.

63:5.5 (715.5) 부분적으로 보호된 거주지의 위장에 그들은 매우 일찍부터 놀랄 만큼 영특함을 보였으며, 그들은 돌로 된 잠자는 방들, 둥근 모양의 돌로 된 오두막을 기술적으로 지을 수 있었고, 밤이 되면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 오두막으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는 큰 돌을 굴려서 막아 놓았는데, 이 바위는 돌로 지붕을 마지막으로 덮기 전에 안쪽에 들여놓음으로써 이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63:5.6 (715.6) 안돈-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었고 노련한 사냥꾼들이었으며, 야생 딸기들과 특정한 나무들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주로 고기를 먹었다. 안돈이 돌도끼를 발명하였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일찍부터 던지는 창과 작살을 효력 있게 사용할 수 있었다. 마침내 도구-창조의 마음은 용구-사용의 손과 더불어 기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초기의 이 인간들은 부싷돌로 된 도구들을 만드는데 매우 능숙하게 되었다. 마치 지금-현재의 사람들이 금과 백금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하여 세계 구석구석까지

여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부싯돌을 찾기 위하여 더 멀리까지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으로 여행하였다.

63:5.7 (715.7) 그리고 이 안돈 종족들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지능을 현시하였으며, 그것은 그들의 퇴화하는 후손들이 불을 붙이는 다양한 방법들을 반복하여 다시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0만 년 동안에도 달성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제 6 장. 오나가—최초로 진리를 가르친 선생

63:6.1 (715.8) 안돈의-종족의 분산이 확장되며, 씨족들의 문화적 그리고 영적 지위는 오나가의 시대까지 거의 만 년 동안 퇴보하였으며, 그는 이 종족들의 영도자관계가 되었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왔으며, 처음으로 그들 모두를 “사람과 동물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분”께 경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였다.

63:6.2 (716.1) 안돈의 철학은 매우 혼동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불을 우연히 발견함으로써 큰 위안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불의 숭배자가 되는 것을 거의 피할 수 없었다. 어쨌든, 그의 이성이 그를 자기 자신의 발견으로부터, 열과 빛의 보다 장엄하고 우월한 근원인 태양으로

인도하였지만, 태양은 너무 멀리 있었으므로 태양 숭배자가 되지는 못하였다.

63:6.3 (716.2) 안돈-사람들은 일찍부터 자연력들—천둥, 번개, 비, 눈, 우박, 얼음—에 대한 경외심을 키워갔다. 그러나 이 초기시대에는 굶주림이 계속 반복적인 자극으로 작용하였고, 그들은 주로 동물을 음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물숭배를 발전시켰다. 안돈에게는, 더 큰 양식이 되는 동물들은 창조적인 능력과 몸을 보호하는 힘에 대한 상징들이었다. 때로는, 이러한 더 커다란 동물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관습이 되기도 하였다. 특정한 동물이 경배의 대상으로 성행하는 동안, 그 동물의 서투른 윤곽이 동굴 벽에 그려지곤 했고, 후대에는 기술이 점차 발전되어, 그러한 동물 하느님이 여러 가지의 장신구들 위에 새겨지게 되었다.

63:6.4 (716.3) 안돈의-후예들은 매우 일찍부터, 부족이 숭배하는 동물의 고기를 삼가는 관습을 형성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자기들의 젊은 아이들에게 보다 적절한 감동을 주기 위하여, 숭배하고 있는 이 동물들 중에서 한 마리를 선택하여 잡고, 존경의 예식을 진화시켰다; 아주 후대에

이르러서는, 이런 원시적인 의식 행위는 계속 발전해서, 나중에는 그들의 후손들이 더욱 공을 들이는 희생 의식으로 발전시켰다. 리고 이것이 경배의 일부분으로서 남은 희생제물의 기원이다. 그리고 이 관념은 모세에 의해서 히브리의 종교 예식 속에 정교하게 다듬어졌으며,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피를 흘림"으로 대속하는 교리로서 유지되게 되었다.

63:6.5 (716.4) 이들 원시 인간들의 삶 속에서 먹을 것이 온통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은, 그들의 위대한 선생이었던 오나가가 단순한 이 무리들에게 가르친 기도문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은 다음과 같았다:

63:6.6 (716.5) "오 생명의 숨이시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열음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며, 숲 속에 있는 우리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저 세상의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받아주소서."

63:6.7 (716.6) 오나가는 현재의 카스피 해가 위치한 지역의 고대 지중해 북쪽 해안선에 있는 오반이라고 불리는 촌락에 본부를 설치하고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땅으로부터 북쪽으로 나 있는 여행 통로가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곳에 있는, 경유지였다. 그는 오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정착지들로 선생들을 보내어, 하나의 신(神)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교리들과 그가 저 너머 위대한 것이라고 불렀던 내세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전파하고자 하였다. 오나가가 보낸 이 사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던 최초의 선교사들이었다; 고기를 익혀서 먹은 최초의 인간들이었고, 정기적으로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마련하는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막대기 끝에 달아서 그리고 달구어진 돌 판 위에서 고기를 요리하였다; 나중에는 불 속에서 큰 덩어리를 통째로 굽기도 하였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날고기를 먹는 상태로 거의 전반적으로 되돌아갔다.

63:6.8 (716.7) 오나가는 983,323년 전에 (서기 1934년으로부터) 태어났으며, 69살까지 살았다. 이 주(主)마음의 성취들과 그리고 행성영주 시대-이전의 영적 영도자의 기록은, 이들 원시 민족들이 하나의 진정한 사회로 조직화되는 가슴 떨리는 이야기이다. 그는 효과적인 부족 체제를 설립하였는데, 그 뒤로 수천 년 동안 이러한 모습은 다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행성영주가 도착할 때까지, 그러한

높은 영적 문명은 이 지구상에서 다시 이룩되지 못하였다. 단순한 이 사람들은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종교를 가졌으나, 그들의 퇴화된 후손들은 그것을 계승하지 못하였다.

63:6.9 (717.1) 안돈과 폰타가 생각 조절자를 받았었고, 그들의 후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도 그러하였지만, 오나가의 시대가 되어서야 많은 숫자의 조절자들과 수호 세라핌천사들이 유란시아에 내려오게 되었다. 이 시대는 정말로 원시인들에게 황금기였다.

제 7 장. 안돈과 폰타의 생존

63:7.1 (717.2) 인간 종족의 훌륭한 설립자들 이었던 안돈과 폰타는, 유란시아에 행성영주가 도착하면서 판결이 내려질 때 인정을 받게 되었고, 때가 이르자 예루셈의 시민자격을 받으면서 맨션세계들의 체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들은 비록 유란시아로 돌아올 수 있는 허락을 받지 못하였지만, 자기들이 설립한 그 종족의 역사를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칼리가스티아의 배반에 대해 슬퍼하였고, 아담의-실패 때문에 비통해 하였지만, 자기들의 세계를 미가엘이 자신의 최종적인 증여를 위한

무대로 선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넘치도록 기쁨을 향유하였다.

63:7.2 (717.3) 안돈과 폰타는 둘 모두 예루셈에서 자기들의 생각 조절자들과 융합되었으며, 손타드를 포함한 그들의 자손들 여러 명들도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손은, 심지어는 그들의 직계들도, 단지 영 융합을 성취하였을 뿐이다.

63:7.3 (717.4) 안돈과 폰타는, 예루셈에 도착한 직후에, 유란시아로부터 하늘나라 구체들로 들어오는 시간의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모론시아 개인성들을 돕기 위하여 첫 번째 맨션세계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체계 주권자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 봉사에 무기한 배정되어 있다. 그들은 이 계시들과 관련하여 유란시아에 인사말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그 요청은 지혜롭게 거절되었다.

63:7.4 (717.5) 그리고 이 이야기는 유란시아의 모든 역사들 중에서 가장 웅대하고 황홀한 장(章), 진화에 관한, 생명의 투쟁들에 관한, 죽음과 그리고 모든 인류의 유일한 부모의 영원한 생존에 대한 이야기이다.

63:7.5 (717.6)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생명운반자에 의해서
제시되었음]

제 64 편 진화하는 유색 인종

64:0.1 (718.1)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만 년 전인,
안돈과 폰타의 시대로부터, 행성영주의 시대를 거쳐,
빙하기가 끝나는 때까지 유란시아의 진화적 종족들에
대한 것이다.

64:0.2 (718.2) 인간 종족의 역사는 거의 100만 년에 이르고
있으며, 이 이야기의 전반부는 유란시아의 행성영주 시대
이전과 거의 일치한다. 인간 존재들에 관한 역사의
후반부는 행성영주의 도착과 여섯 가지 유색 종족들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었고, 일반적으로 구석기시대라고
간주되는 시기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제 1 장. 안돈의-원주민들

64:1.1 (718.3) 원시인은 백만 년 전보다 약간 후에 진화되어
지구상에 출현하였으며, 격렬한 체험을 가졌다. 그는
열등한 유인원 종족들과 섞이는 위험으로부터 탈피하려는
본능적인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바다 위로
20,000피트 이상 융기되어 있는 건조한 티베트 고원 지역

때문에 동쪽으로 이주할 수 없었다; 지중해가 확대되어 있었으므로 남쪽이나 서쪽으로도 갈 수 없었는데, 그 당시에 지중해는 동쪽으로 인도양까지 확장되어 있었다; 북쪽으로 이동하였을 때, 그는 확대되는 얼음 덩어리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얼음 덩어리 때문에 더 북쪽으로 이주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흠어지는 종족들이 점점 더 호전성을 띄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지능이 발달된 그 집단들은 남쪽으로 내려가, 털이 많고 나무 위에서 사는 열등한 지능의 친족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다.

64:1.2 (718.4) 사람의 초기 종교 감정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지형적 상황에 있는 폐쇄된 환경—오른 쪽으로는 산이, 왼쪽으로는 물이, 그리고 앞으로는 얼음이 가로막고 있는 환경—속에서 느끼는 어찌할 수 없는 것에서 자라났다. 그러나 진보해 가는 안돈-사람들은 남쪽에서 나무 꼭대기에 살고 있는 그들의 친척들에게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64:1.3 (718.5) 이 안돈-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친척들의 성향과는 반대로 숲을 피하였다. 숲 속에 거주할 때에는 인간이

퇴보하였고; 인간 진화는 오로지 개방되어 있는 고지대에서만 이루어졌다. 날씨가 춥고 음식이 풍부하지 못한 개활지는 행동하고 발명하며 비상한 수단을 개발하도록 충동을 주었다. 이들 안돈의-종족들이 바위투성이의 북쪽 지대에서 고난과 궁핍을 겪는 동안 현재 인간 종족들의 선구자들로 발전되어갔던 반면에, 그들의 퇴보하는 사촌들은 초기에 공통적으로 기원되었던 땅에 있는 남부 열대림 속에서 사치스럽게 지내고 있었다.

64:1.4 (718.6) 이러한 사건들은 제 3 빙하기, 지질학자들이 제 1 빙하기라고 알고있는 기간 동안에 발생했다. 그전에 있었던 두번의 빙하 지대는 북유럽까지 확장되지 못했었다.

64:1.5 (718.7) 대부분의 빙하기 기간 동안, 잉글랜드는 프랑스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던 반면, 나중에는 아프리카가 시실리 육교에 의해 유럽에 붙어 있었다. 안돈의-종족들이 이주하던 시기에, 서쪽으로는 잉글랜드로부터 시작하여 유럽을 거쳐 동쪽으로는 자바에 이르는 곳까지 육지가 계속 연결되어 있었지만; 오스트레일리아는 다시

분리되었고, 독특한 동물 군이 더욱 두드러지게 발달되었다.

64:1.6 (719.1) 950,000년 전에, 안돈과 폰타의 후손들이 동쪽과 서쪽으로 멀리 이주하였다. 서쪽으로 향한 그들은 유럽을 지나 프랑스와 잉글랜드까지 이르렀다. 보다 후대에 그들은 동쪽으로 진출하여, 그들의—소위 자바인 이라고 불리는—빠가 아주 최근에 발견된 바 있는 자바 지역까지 이르렀으며, 그 후에 타스매니아로 여행하였다.

64:1.7 (719.2) 지능이 열등한 동족 동물들과 매우 자유롭게 섞여버린, 동쪽으로 이동한 집단들보다, 서쪽으로 이동한 집단들은 같은 선조로부터 기원된 퇴보된 종족들에 의해서 오염되는 일이 비교적 적었다. 진보되지 못한 개별존재들이 남쪽으로 이동하였고 결국에는 열등한 종족들과 짝을 짓게 되었다. 나중에는 그들로부터 출생된 혼혈아들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빠른 속도로 퍼져가는 안돈의-민족들과 짝을 지었고, 그러한 유감스러운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월한 혈통들이 끊임없이 퇴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원시 정착민들 중에서 호흡을

주신 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이러한 초기 시조(始祖) 문명은 소멸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64:1.8 (719.3) 그리고 그러한 일은 유란시아에 끊임없이 존재해 오고 있다. 장래가 매우 촉망되었던 문명이 연속적으로 오염되었고, 우월한 자들을 열등한 종족들과 결합하여 자손을 낳도록 자유롭게 허락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마침내는 소멸되고 말았다.

제 2 장. 폭스홀 민족

64:2.1 (719.4) 900,000년 전에, 안돈과 폰타의 기술 그리고 오나가의 문화는 지구 표면에서 계속 사라져갔으며; 문화와 종교 그리고 심지어는 부싯돌 사용도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

64:2.2 (719.5) 바로 이 때, 열등한 혼혈 집단의 많은 집단들이 프랑스 남쪽으로부터 잉글랜드에 도착하였다. 이 부족들은 숲에서 사는 꼬리 없는 원숭이 모양의 창조체와 너무 많이 섞여 있었으므로 거의 인간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종교가 없었지만, 미숙하나마 부싯돌을 다룰 수 있었고, 불을 붙이기에 충분한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었다.

64:2.3 (719.6) 그들을 뒤따라서,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우월한 아이를 많이 낳는 민족이 발생하였고, 그들의 자손이 북쪽으로는 빙하 지대로부터 남쪽으로는 알프스와 지중해 지역까지 삼시간에 퍼져나갔다. 이 부족은 소위 하이델베르크인이라고 불리는 종족이었다.

64:2.4 (719.7) 문화가 퇴보하는 이 긴 기간 동안, 잉글랜드에서는 폭스홀 민족이 그리고 인도 남부에서는 바도난 부족들이, 안돈의 전통들 일부와 오나가의 문화 중에서 남아있는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지니고 있었다.

64:2.5 (719.8) 폭스홀 민족은 가장 서쪽에 살았고 안돈의-문화 대부분을 보존하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부싯돌을 다루는 그들의 방법을 보존하였는데, 그들은 그것을 에스키모인의 고대 선조들인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수하였다.

64:2.6 (719.9) 폭스홀 민족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잉글랜드에서 발견되었지만, 이 안돈-사람들은 실제로 그 지역들에서 살았던 최초의 인간이었다. 그 당시에는 연결 육지가 여전히 프랑스와 잉글랜드를 이어주고 있었다; 안돈 후예들의 초기

정착지들 대부분이 고대의 강변과 해안선을 따라서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잉글랜드해협과 북해 밑에 가라앉아 있지만, 그 중에서 서너 개 정도는 잉글랜드 해안선 부근에서 물위에 남아있다.

64:2.7 (720.1) 폭스홀 민족 중에서 보다 지능적이고 영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종적 우월성을 유지하였고 원시 종교 관습들을 계속 유지하였다. 그리고 이 민족은 후대의 종족들과 섞이면서, 후기 빙하 침투가 있는 뒤에 잉글랜드로부터 서쪽으로 이동하였으며, 지금-현재 에스키모인 으로 살아남아 있다.

제 3 장. 바도난 부족들

64:3.1 (720.2) 서쪽에 있는 폭스홀 민족을 제외하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다른 문화적 중심지가 동쪽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이 집단은 안돈의 먼 후손인 바도난의 부족들 중에서 인도의 북서쪽 고원에 있는 구릉지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 민족은 안돈의 후손들 중에서 인간 제물을 실천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64:3.2 (720.3) 고지대에 사는 이 바도난-사람들은 숲으로 둘러싸이고 하천들이 가로지르는 광대한 고원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냥감들이 풍부하였다. 그들은 티베트 지역에 있는 자기 동족들과 비슷하게, 천연적인 암석 오두막집과 산 중턱에 있는 동굴들 그리고 반(半)지하 통로 속에서 살았다.

64:3.3 (720.4) 북쪽에 있는 부족들이 빙하를 점점 더 두려워하였던 반면에, 그들이 기원되었던 고향 땅 근처에 사는 부족들은 점점 더 물을 무서워하였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반도가 점차적으로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것이 몇 차례 융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시종족들의 구전(口傳)들은 바다에 대한 위험성과 주기적인 침수에 대한 두려움을 주제로 하여 조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강물의 범람에 대한 체험과 함께, 안전한 주거용 장소를 찾기 위해 고지대로 올라가게 된 원인이 되었다.

64:3.4 (720.5) 바도난 민족의 동쪽, 북부 인도의 시워릭 언덕에서는 사람과 다양한 인간-이전(以前)족 집단들 사이의 과도기에 대하여 지구의 다른 곳보다도 더욱 근접하는 화석들이 발견될 것이다.

64:3.5 (720.6) 850,000년 전에, 우월한 바도난 부족들은 그들보다 열등하고 동물적인 이웃들에 대항하여 멸종시키려는 전쟁을 시작하였다. 1,000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지역의 접경지대에 있던 대부분의 동물 집단들은 멸종되거나 남쪽 숲 속으로 도망쳤다. 열등한 종족들을 멸종시키는 이 전쟁은 그 시대에 높은 곳에 살던 종족들에게 약간의 향상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향상된 이 바도난-사람 혈통의 혼합된 후손들이 분명하게 새로운 민족—네안데르탈 종족—으로서 활동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제 4 장. 네안데르탈 종족들

64:4.1 (720.7) 네안데르탈인들은 아주 우수한 전사(戰士)들이었고, 먼 지역까지 여행하였다. 그들은 인도 북서쪽의 고원 중심지로부터 퍼져나가서, 서쪽으로는 프랑스, 동쪽으로는 중국, 그리고 심지어는 북부 아프리카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들은 진화된 유색 인종들이 이주하는 시기까지, 거의 500,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였다.

64:4.2 (720.8) 800,000년 전에, 사냥감들이 풍부하게 있었고; 여러 종류의 사슴과 코끼리와 하마들이 유럽에 우글거렸다. 소들이 매우 많이 있었고; 말과 이리들은 없는 곳이 없었다. 네안데르탈인들은 사냥을 매우 잘하였고, 프랑스에 있는 부족들은 가장 우수한 사냥꾼들에게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실천 관행을 처음으로 채택하였다.

64:4.3 (721.1) 이 네안데르탈인들에게 순록은 매우 유용한 동물이었는데, 그들은 그 동물의 뿔과 뼈들을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음식과 옷 그리고 도구들을 제공하였다. 그들에게는 문화가 거의 없었지만, 부싯돌을 다루는 솜씨는 안돈 시대의 차원에 거의 필적할 만큼 크게 향상되었다. 나무 손잡이에 매단 큰 부싯돌이 다시 사용되었고 도끼와 곡괭이 역할을 하였다.

64:4.4 (721.2) 750,000년 전에, 네 번째 얼음 덩어리가 남쪽으로 상당히 내려왔다.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발달되면서, 네안데르탈인들은 북쪽에 있는 강을 덮은 얼음에 구멍을 내었고 이 구멍으로 지나가는 물고기들을 창으로 잡을 수

있었다. 이 부족들은 확장되는 빙하를 따라 후퇴하였고, 이 무렵에는 유럽에서 가장 멀리까지 침투해 있었다.

64:4.5 (721.3) 이 시대에, 시베리아 빙하는 가장 남쪽까지 내려왔고 초기 사람들을 남쪽으로 몰아냈으며, 그의 기원이었던 지역 쪽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인간 종족들은 매우 구별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보적이지 못한 유인원 친척들과 더 이상 혼합될 위험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64:4.6 (721.4) 700,000년 전에, 유럽 지역에서 가장 넓게 퍼져 있었던 제 4차 빙하가 퇴각하고 있었다; 사람들과 동물들은 북쪽으로 다시 돌아갔다. 기후는 추웠고 습도가 높았으며, 원시인들은 유럽과 서부 아시아에서 다시 번성하였다. 가장 최근에 빙하로 덮여 있었던 북쪽 대륙이 점차적으로 숲으로 뒤덮이게 되었다.

64:4.7 (721.5) 포유류 생명은 대빙하기에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이 동물들은 빙하 지대와 알프스 사이에 있는 띠 모양의 좁은 지역에서 버티었고, 빙하가 물러가면서 유럽 전역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아프리카로부터 시칠리아 연결-육지를 통하여 곧고 바른 어금니를 가진 코끼리들, 코가

넓은 코뿔소, 하이에나, 그리고 아프리카 사자들이 그곳에 도착하였고, 새로운 이 동물들은 송곳니가 있는 호랑이들과 하마들을 실질적으로 거의 전멸시켰다.

64:4.8 (721.6) 650,000년 전에, 온화한 기후가 계속되는 현상이 있었다. 빙하기들 사이에 있는 기간 동안 기온이 매우 따뜻해져서 알프스 지역의 얼음과 눈이 거의 사라졌다.

64:4.9 (721.7) 600,000년 전에, 빙하는 북쪽으로 가장 멀리까지 퇴각(退却)하였고, 수천 년 동안 활동이 멈추어 있다가, 다섯 번째 확장이 다시 남쪽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50,000년 동안 기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유럽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에게도 거의 변함이 없었다. 전에 있었던 기간의 약간 건조하였던 상태가 줄어들었고, 고산지대의 빙하들은 강물이 있는 계곡을 따라 멀리까지 내려왔다.

64:4.10 (721.8) 550,000년 전에, 확장되는 빙하는 사람과 동물들을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사람은, 그 당시에 지중해 지역에 크게 확장되어 있었던 흑해 지역과 빙하 지대 사이에 있는 지역, 그리고 북동쪽으로 뻗어 나가서 아시아까지 확대된 띠 모양의 넓은 지역에 풍부한 거주지(居住地)를 갖고 있었다.

64:4.11 (721.9)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빙하기 동안, 네안데르탈 종족들의 미개한 문화는 더 멀리까지 퍼져 나갔다. 그러나 진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란시아에서 지능이 높은 새롭고도 변형된 생명 유형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정말로 실패하는 듯이 보였다. 거의 250,000년 동안, 이 원시 민족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사냥과 싸움을 하였고 때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들의 우월한 안돈의-조상들에 비하여 계속적으로 퇴보하였다.

64:4.12 (721.10) 영적으로 암흑 시대였던 이 기간 동안,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 문화는 가장 낮은 차원에 도달해 있었다. 네안데르탈인들은 실제로 조잡스러운 미신 이상(以上)의 종교를 갖지 못하였다. 그들은 구름에 대하여, 그리고 특별히 이슬비와 안개 현상에 대하여 극단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자연 현상의 기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긴 원시적 종교가 점점 더 발전되었고, 반면에 동물을 경배하던 현상은 도구들이 발달되면서 점차 퇴보되었으며, 사냥감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이 종족은 양식에 대한 염려 없이 살 수 있었고; 사냥에 대한 성(性)적 보상으로 인하여 수렵 기술이 크게 발달되는

경향이 있었다. 두려움의 이 새로운 종교는 이들 자연 요소들 뒤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기세들을 달래려는 시도로 이끌었고, 나중에는 눈에 안 보이는 이들 미지(未知)의 물리적 기세들을 진정시키려고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인간 희생제물의 이 끔찍한 실천 관행은, 유란시아의 좀 더 뒤떨어진 민족들에 의해서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이어져왔다.

64:4.13 (722.1) 초기의 이 네안데르탈인들은 거의 태양을 경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고; 해질녘에 대한 필사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달이 어슴푸레 비치는 동안에는 그런 대로 지낼 수 있었지만, 달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더욱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달빛이 다시 비치도록 유인하려는 하나의 노력으로 남자와 여자 가운데 가장 훌륭한 표본을 잡아 희생제물로 삼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태양이 규칙적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았지만; 달의 경우에는, 오로지 자기 부족에 속한 동료를 희생제물로 제공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고 추측하였다. 그 종족이 진보되면서, 희생제물의 대상과

목적이 점차 바뀌게 되었지만, 종교 예식의 일부분으로서 인간을 희생제물로 삼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제 5 장. 유색 인종들의 기원

64:5.1 (722.2) 500,000년 전에, 인도 북서쪽 고지대에 사는 바도난 부족들은 또 하나의 극심한 인종적 투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격렬한 이 전쟁은 백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맹위를 떨쳤으며, 긴 전쟁이 끝나쳐졌을 때에는, 오직 백여 가구들만이 살아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생존자들은 당시에 살고 있던 안돈과 폰타의 자손들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고 바람직한 형태의 사람들이었다.

64:5.2 (722.3) 그리고 이 때, 고지대에 사는 이 바도난-사람들 속에서 하나의 새롭고도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살고 있던 고지대 중에서 북동쪽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유별나게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갑자기 태어나게 되었다. 이들이 산각 가족이었고, 유란시아의 여섯 가지 유색 인종들의 조상이었다.

64:5.3 (722.4) 이들 산각 자녀들은 모두 19명이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지능이 월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피부가 태양에 노출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색으로

변하는 경향이 현시되었다. 19명의 이 아이들 중에는 적색이 5명, 오렌지색 2명, 황색 4명, 녹색 2명, 청색 4명, 그리고 남색이 2명 있었다.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이 색깔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이 젊은이들이 나중에 동족들과 결혼하게 되자, 그들의 자손은 모두 산각 부모의 피부색을 닮는 경향을 보였다.

64:5.4 (722.5) 그리고 나는 이제 연대순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멈추겠으며, 이 무렵에 행성영주가 도착되었음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유란시아에 나타난 6가지의 산각 종족들에 대해 따로 알아보고자 한다.

제 6 장. 유란시아의 여섯 산각 종족

64:6.1 (722.6) 진화되는 보통 행성에서는 진화적인 6가지 종족들이 하나씩 순서대로 나타나는데; 적색 인종이 처음으로 진화되어 나타나고, 그 다음 색깔의 종족들이 나타나기까지 여러 세대 동안 그 종족이 세상에 두루 퍼진다. 유란시아에서처럼 6가지 종족들이 동시에 그리고 한 가정 속에서 나타나는 일은, 가장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

64:6.2 (723.1) 그 전에 유란시아에 나타났던 안돈-사람도 사타니아 체계에서 어느 정도 새로운 것이었다. 진화적인 유색인종이 나타나기 전에 그러한 의지적인 창조체 종족이 나타나는 세계는 그 지역체계 속에 하나도 없었다.

64:6.3 (723.2) 1. 적색 종족. 이 민족은 인간 종족 중에서 비상한 사람들이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안돈과 폰타에 비하여 우월하였다. 그들은 지능이 가장 발달된 집단이었으며, 산악 자녀들 중에서 부족적인 문명과 정치 체제를 처음으로 개발하였다. 그들은 항상 일부일처(一夫一妻)를 유지하였고; 그들의 혼합된 후손들도 여러 번하는 결혼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드물었다.

64:6.4 (723.3) 후대에 이르러서, 그들은 아시아에서 황인종 형제들과 매우 심각한 장기간의 분쟁을 체험하였다. 그들은 일찍부터 활과 화살을 발명하여 도움을 받았지만, 불행하게도 같은 종족끼리 싸우는 선조들의 습성 대부분을 이어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스스로 세력이 약화되었고, 그들은 황색 인종들에 의해서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

64:6.5 (723.4) 약85,000년 전에, 그 적색 인종들 중에서 비교적 순수하게 남아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북아메리카로 건너갔으며,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베링 지역의 지협이 가라앉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고립되게 되었다. 아시아로 되돌아간 적색 인종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과 피가 섞인 다른 유색 인종들이 시베리아, 중국, 중앙아시아, 인도, 그리고 유럽 전역에 남아 있었다.

64:6.6 (723.5) 그 적색 인종은 아메리카로 건너갔을 때, 자기들의 초기 전통들과 가르침들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들의 직계 조상들은 행성영주가 있는 지구 본부의 후기 활동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아메리카에 도착한 직후부터, 그 적색 인종들은 이 가르침들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였고, 지적이고 영적인 문화의 큰 쇠퇴가 발생하였다. 이 민족은 곧 자기들끼리 너무도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하였으므로, 종족 내부의 이러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비교적 순수한 적색 인종 생존자들은 급속도로 숫자가 줄어들었다.

64:6.7 (723.6) 이러한 엄청난 쇠퇴로 인하여 적색 인종의 문명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던 65,000년 전에, 오나모나론톤이

그들의 영도자 그리고 영적인 구원자로 등장하였다. 그는 아메리카 적색 인종들에게 일시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위대한 영"에 대한 경배를 부활시켰다. 오나모나론톤은 96세까지 살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메리카 삼나무 숲 속에 본부를 두고 있었다. 그의 후대 후손들 대부분은 블랙푸트 인디언 속에서 현대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64:6.8 (723.7) 시간이 흐르면서, 오나모나론톤의 교훈들은 어렵פות한 전통으로 바뀌었다. 내란이 다시 시작되었고, 이 위대한 선생의 있던 시절 이후로는, 결코 또 다른 영도자가 그들에게 보편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족 내부의 투쟁 속에서 보다 지적인 종족들이 점점 더 소멸되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었다면, 이 유능하고 지능적인 적색 인종에 의해서 하나의 위대한 문명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세워졌을 것이다.

64:6.9 (723.8) 중국으로부터 아메리카로 건너온 후에, 북쪽에 있는 적색 인종은, 후대에 백색 인종에 의해서 발견될 때까지, 다른 세계의 영향권에 한 번도 접촉된 적이 없었다(에스키모는 제외하고). 그 적색 인종이, 후대의

아담의-혈통과 섞임으로써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완벽하게 잃어버렸던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었다. 역사에서 나타난 대로, 적색 인종은 백색 인종을 지배할 수 없었으며, 기꺼이 복종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그 두 종족들의 피가 섞이지 않는다면, 둘 중의 하나의 운명은 끝나게 될 것이다.

64:6.10 (723.9) 2. 오렌지색 인종. 이 종족의 뚜렷한 특징은 아무 것이나 그리고 무엇이든지 쌓아 올리려는, 기묘한 충동이었으며, 단지 어느 부족이 얼마나 큰 언덕을 쌓을 수 있는지 보려고, 거대한 바위 언덕을 쌓기까지 하였다. 그들은 진보적인 민족은 아니었지만, 행성영주의 학교들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었고 교육을 받기 위해 대표들을 그곳에 파견하였다.

64:6.11 (724.1) 오렌지색 종족은 지중해가 서쪽으로 물러갈 때 아프리카를 향하여 처음으로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아프리카에 안전하게 발을 붙인 적이 없었고, 후대에 도착한 녹색 인종에 의해서 멸종되었다.

64:6.12 (724.2) 종말이 오기 전에, 이 민족은 대부분의 문화와 영적 토대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이 불행한 종족은 포순타의 현명한 지도력의 결과로 보다 높은 삶의 위대한 복원이 있었으며, 그는 불행한 이 종족의 주(主)마음이었고, 약 300,000년 전에 그들의 본부가 아마겟돈에 있을 때 그들에게 사명활동 하였다.

64:6.13 (724.3) 오렌지색과 녹색 사람사이에 최후의 거대한 투쟁이 이집트의 나일 계곡 하부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오랫동안 이어진 이 전쟁은 거의 100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그 전쟁이 끝났을 무렵에는 극소수의 오렌지색 종족이 살아남아 있었다. 살아남은 이 민족들은 모두 흩어져서, 녹색 사람에 흡수되었고, 나중에 유입된 남색 사람에 흡수되었다. 그러나 100,000년 전에, 하나의 종족으로서 존재하던 오렌지색 사람이 사라져버렸다.

64:6.14 (724.4) 3. 황색 인종. 초기 황색 인종들은 처음으로 사냥을 버리고, 정착된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농업에 기초한 가정생활을 개발하였다. 지능적으로는 적색 인종보다 뒤떨어졌지만, 인종적인 문명을 조성하는 면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다른 모든 산악 민족들보다

우월했다. 그들은 형제우애의 영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부족들이 비교적 평화롭게 함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으며, 아시아로 점차 확대되어 가면서 적색 인종을 몰아낼 수 있었다.

64:6.15 (724.5) 그들은 지구의 영적인 본부의 영향권으로부터 멀리까지 여행하였고, 칼리가스티아 배신 이후로는 극심한 암흑세계에 빠졌지만; 그러나 약 100,000년 전에, 싱랑톤이 이 부족들의 영도자관계가 되어 "하나의 진리"를 경배하도록 선포하였을 때, 이 종족 사이에는 한 때 찬란한 시대가 발생했다.

64:6.16 (724.6) 비교적 많은 숫자의 황색 인종들이 살아남게 된 것은 그 부족들 간의 평화로운 관계 때문이었다. 싱랑톤이 나타난 때로부터 현대의 중국이 등장하는 시대까지, 이 황인종들은 유란시아 국가의 좀 더 평화로운 가운데에서 숫자가 계속 불어났다. 이 종족은 후대에 유입된 아담의-혈통의 강력한 유산을 아주 적기는 하지만, 받아들였다.

64:6.17 (724.7) 4. 녹색 인종. 녹색 종족은 원시인들 중에서 비교적 능력이 떨어지는 집단이었으며, 여러 방향으로 광대하게 이주함으로써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그들이 흩어지기

전인, 350,000년 전에, 이 부족들은 폰타드의 지도하에 문화가 크게 되살아나는 체험을 했었다.

64:6.18 (724.8) 이 녹색 종족은 주로 세 개의 부류로 나뉘었다. 북쪽의 부족들은 정복을 당하여 노예가 되었고 황인종과 청인종들에게 흡수되었다. 동쪽에 있는 집단들은 그 당시의 인도인들과 피가 섞였고, 생존자들이 계속 이어졌다. 아프리카로 들어간 남쪽의 부족들은 자기들과 거의 비슷하게 열등한 오렌지색 동족들을 파멸시켰다.

64:6.19 (724.9) 여러 가지 면에서 두 집단들은 이러한 투쟁 속에서 비슷하게 겨루었는데, 왜냐하면 두 집단들 각각 거인 종족이 태어났기 때문이며, 그들 영도자 중에 많은 자가 키가 8피트와 9피트에 이르렀다. 녹색 인종 중에서 이러한 거인 종족들은 대개 남쪽에 있는 이 부족과 이집트에 있는 부족에 한정되었다.

64:6.20 (725.1) 승리를 이룩한 녹색 인종 중 남은 자들은 나중에 남색 인종, 기원적 산각 종족 분산의 중심지로부터 발달되고 이주한 마지막 유색 인종에 의해서 흡수되었다.

64:6.21 (725.2) 5. 청색 인종. 청색 인종들은 위대한 민족이었다.

그들은 일찍부터 창을 발명하였고 나중에는 현대 문명의 많은 기술들의 기초를 이룩하였다. 그 청인종은 혼과 연관해서는 적색 인종과 같은 두뇌 힘을 가졌고, 황색 인종과 같은 정서를 갖고 있었다. 아담의-후예들은 나중까지 존속된 유색 인종들 중에서 그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64:6.22 (725.3) 초기의 청색 인종들은 칼리가스티아 영주의

참모진이었던 그 선생들의 설득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나중에는 배반한 그 영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큰 혼돈에 빠졌다. 다른 원시 종족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칼리가스티아의 배반에 의해서 형성된 혼란으로부터 충분히 회복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성향을 완벽하게 극복한 적이 없었다.

64:6.23 (725.4) 칼리가스티아가 타락한 후 500년쯤 지났을 때,

원시 형태의 교육과 종교가—그러나 역시 덜 실제적이고 덜 유익한—널리 펼쳐진 부흥이 발생하였다. 그 청색 인종 속에서 올란돌프가 위대한 선생이 되었고, 많은 부족들로

하여금 “최극 우두머리”라는 이름하에 다시 참된 하느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하였다. 이것은 이 종족이 나중에 아담의-혈통과 섞임으로써 크게 향상되기 이전의 기간 중에서 가장 큰 진보를 이룬 사건이었다.

64:6.24 (725.5) 구석기시대에 대한 유럽인들의 연구와 탐사 결과는 주로 고대의 이 청색 인종들의 도구들과 뼈들 그리고 예술 작품들의 발굴에 집중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후대까지 유럽에 계속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란시아에서 소위 백색 인종이라고 불리는 종족들은 바로 이 청색 인종의 후손들이며, 그들은 처음에는 황색 인종 그리고 적색 인종과 약간 혼합되었고, 나중에는 보라색 인종의 많은 부분과 동화됨으로써 크게 발전하였다.

64:6.25 (725.6) 6. 남색 인종. 적색 인종이 모든 산악 민족 중에서 가장 진보된 종족이었듯이, 흑색 인종은 가장 진보가 안 된 종족이었다. 그들은 고지대에 있었던 그들의 고향으로부터 맨 나중에 이주하였다. 그들은 아프리카로 이동하였고, 그 대륙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여러 시대에

걸쳐서 노예로 강제 이주되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그곳에 남아 있었다.

64:6.26 (725.7) 아프리카에서 고립되어 있었던 남색 종족은, 적색 인종과 마찬가지로, 아담의-혈통과 결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인종적 진보를 거의 전적으로 받지 못하였다. 아프리카에 홀로 존재하였던 남색 인종은, 하나의 거대한 영적 각성을 체험하였던, 오르보논이 출현한 시대까지 거의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오르보논이 선포한 “하느님들의 하느님”을 나중에는 거의 전반적으로 잃어버렸던 반면, 알 수 없는 분을 경배하려는 욕구는 전반적으로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적어도 그들은 수천 년 전까지 하나의 경배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64:6.27 (725.8) 그들의 퇴보에도 불구하고, 이 남색 인종은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종족과 마찬가지로 천상(天上)의 힘 앞에 아주 똑같은 자격을 갖추어 왔다.

64:6.28 (725.9) 이 기간은 다양한 종족들 간의 격렬한 투쟁의 시대들이었지만, 행성영주의 본부 근처에서는 보다 깨우친 그리고 보다 근래에 가르친 집단들이 비교적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살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퍼의 반란이 발생함으로써 이 체제가 심각하게 붕괴되는 시기까지 세계의 종족들은 거대한 문화적 정복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64:6.29 (726.1) 이러한 색다른 종족들은 때때로 문화적 영적 재생을 체험하기도 하였다. 만산트는 행성영주 시대 이후에 나타난 하나의 위대한 선생이었다. 그러나 전체 종족에게 확실한 영향을 주고 영감을 주었던 뛰어난 영도자들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하겠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교적 수준이 낮은 많은 선생들이 다른 여러 지역에서 출현하였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은 각자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것들이 합쳐져서 문명 세계의 총체적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공헌하였으며, 특별히 칼리가스티아의 반란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담이 도착하기까지의 길고도 어두운 시대 동안 그러하였다.

64:6.30 (726.2) 셋 또는 여섯 가지의 유색 인종들이, 우주에 있는 세계들 속에 진화하도록 계획하는 데에는 많은 유익하고도 충분한 이유들이 있다. 유란시아에 있는 필사자들이 비록 이 이유들 모두를 충분히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지 못하기는 하였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64:6.31 (726.3) 1. 다양성은 자연적인 선택의 폭넓은 작용, 우월한 혈통의 차별적인 생존 방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64:6.32 (726.4) 2. 이들 서로 다른 종족들이 우월한 유전 인자들을 보유할 때에는, 다양한 종족들의 피가 섞임으로써 보다 강하고 우수한 종족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어떤 민족이 우수한 아담의-혈통과 일찍이 철저히 섞임으로써 이후에 그러한 공동 민족이 효과적으로 진보를 이룰 수 있었다면, 유란시아의 종족들은 아담의 혈통과 섞임으로써 이득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종족적인 상황 아래에 있는 유란시아에서 그러한 실험을 시행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상당히 비참한 재난이 될 것이다.

64:6.33 (726.5) 3. 경쟁은 종족들의 분화(分化)에 의해서 건설적으로 자극될 수 있다.

64:6.34 (726.6) 4. 각 인종 속의 여러 인종들과 집단들의 지위 속에 있는 차이점들은, 인간적인 관용과 이타심의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64:6.35 (726.7) 5. 인간 종족의 동질성은, 진화하는 세계의 종족들이 비교적 높은 차원의 영적 발달을 달성할 때까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제 7 장. 유색 인종들의 분산

64:7.1 (726.8) 산길 가족으로부터 유색 후손들이 증가되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인근에 있는 지방으로 영토를 확대하기 위한 기회를 포착하려고 애 쓸 무렵에, 다섯 번째 빙하, 지질학자들이 3번째로 계산하는 빙하 지대가 유럽과 아시아 위를 지나 남쪽으로 상당히 전진하였다. 초기의 이 유색 인종들은 자기들이 기원된 빙하기의 혹독함과 곤핍함에 의해서 엄청난 시험을 받게 되었다. 이 빙하 지대는 아시아에서 무척 확장되어 수천 년 동안 동부 아시아로 이주하는 길이 막혀 있었다. 그리고 후대에 아라비아 지역이 융기된 결과로 지중해가 퇴각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아프리카로 갈 수 있었다.

64:7.2 (726.9) 그리하여 이 산각 민족들은, 서로 다른 종족들 간에 일찍부터 현시된 특유한 그러나 자연스러운 대립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000년 동안 구릉지 근처에 퍼져 있었고 어느 정도 서로 혼합되었다.

64:7.3 (726.10) 행성영주와 아담의 중간 시대 동안, 지금까지 지구 표면에서 발견된 지역들 중에서 인도가 가장 다양한 인종들의 고향이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녹색, 오렌지색, 그리고 남색 인종들이 너무 많이 혼합되었다. 이러한 2차 산각 민족들은 남쪽 지역에서 보다 쉽게 그리고 적절하게 적응하였으며, 그들 대부분은 나중에 아프리카로 이주하였다. 1차 산각 민족들은 우월한 종족이었고, 열대 지방을 회피하였으며, 적색 인종은 황색 인종 바로 뒤를 따라서 북동쪽을 향하여 아시아로 건너갔고, 반면에 청색 인종은 북서쪽으로 이동하여 유럽으로 들어갔다.

64:7.4 (727.1) 적색 인종은 북동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퇴각하는 빙하를 뒤따라갔고, 인도에 있는 고지대를 돌아서 북동쪽 아시아 전역을 장악하였다. 황색 부족들이

그들 바로 뒤에 따라갔고, 나중에는 그들을 아시아에서 몰아내어 북아메리카로 건너가게 하였다.

64:7.5 (727.2) 비교적 순수한 혈통인 적색 인종 생존자들이 아시아를 떠났을 때, 그들 중에는 11개 부족만 남아있었으며, 7,000명이 약간 넘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이 있었다. 이 부족들을 따라서, 혼혈 혈통의 소규모 집단들 세 개가 동행하였는데, 이들 중에서 가장 큰 집단은 오렌지색과 청색 종족이 혼합된 것이었다. 이들 세 집단은 적색 인종과 충분하게 형제우애관계를 이룬 적이 없었으며, 일찍이 남쪽으로 이동하여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로 들어갔고, 그들은 나중에 그곳에서, 황색 인종과 적색 인종이 혼합된 작은 집단과 합류하였다. 이 종족들은 서로 배우자 관계를 이루어 하나의 새로운 혼혈 종족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순수한 혈통의 적색 인종보다는 전쟁을 훨씬 싫어하는 종족이었다. 5,000년이 지나기 전에, 이 혼혈 종족은 3개의 집단으로 나뉘었으며,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에 각각 별도의 문명을 형성하였다. 남아메리카의 부족은 아주 희미하게 아담의 피를 받았다.

64:7.6 (727.3) 초기의 적색 인종과 황색 인종은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혼합되었고, 이 연합의 후손들은 동쪽 방향과 남부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였고, 결국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황색 인종에게 쫓겨서 여러 반도들과 근처에 있는 바다 속의 섬들로 들어갔다. 그들은 지금-현재의 갈색 인종들이다.

64:7.7 (727.4) 황색 인종들은 동부 아시아의 중앙 지대를 계속 지배하고 있었다. 여섯 가지 유색 인종들 중에서 그들이 가장 많이 살아남았다. 지금이나 그 때나 황색 인종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기는 하였지만, 적색과 녹색 그리고 오렌지색 종족들이 멸종의 위기에 이를 정도로 벌였던 끊임없고 잔인한 전쟁보다는 훨씬 덜하였다. 이 세 종족들은 다른 종족들로 구성된 적에 의해서 거의 절멸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파괴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64:7.8 (727.5) 다섯 번째 빙하가 유럽 남부 멀리까지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산악 민족들이 북서쪽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고; 빙하가 물러감에 따라, 청색 인종은 소수의 다른 인종 집단들과 함께 안돈 부족들의 옛 자취를

따라 서쪽으로 이주하였다. 그들은 계속되는 물결처럼 유럽으로 밀려들어갔고, 그 대륙의 대부분을 점령하였다.

64:7.9 (727.6) 그들은 초기에 같은 조상이었던 안돈의 후예인 네안데르탈 후손들에게 유럽에서 곧 대항하게 되었다. 보다 오래된 유럽의 이 네안데르탈인들은 빙하에 밀려서 남쪽과 동쪽으로 밀려나 있었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침입해 들어오는 동족인 산각 부족들로부터 신속히 대항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었고 곧 흡수되었다.

64:7.10 (727.7) 일반적으로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산각 부족들은 초기의 안돈의-평원 부족들의 열등한 후손들보다 지능이 높았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보다 훨씬 우월하였다; 그래서 이들 산각 부족들과 네안데르탈인들이 섞임으로써 보다 오래된 네안데르탈인 종족은 즉시로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 산각 피, 특히 청인의 피를 주입하여 네안데르탈 민족을 현저하게 향상을 만들도록 생산한 것은, 동쪽으로부터 유럽 전역을 휩쓴 더욱 증가되는 지능적 부족들의 뒤따르는 물결에서 드러났다.

64:7.11 (727.8) 그 뒤에 있었던 빙하기들 사이의 기간 동안, 새로운 이 네안데르탈 종족은 잉글랜드로부터 인도로

퍼져나갔다. 청색 인종 중에서 생존자들이 옛 페르시아 반도에 남아 있었으며, 나중에는 특정한 다른 부족들 특히 주로 황색 인종들과 혼합되었고; 그 결과로 피가 섞인, 그리고 나중에는 아담의 보라색 종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진보를 이룩한 종족이 현대 아랍인들 중에서 거무스름한 유목민들로 남아 있다.

64:7.12 (728.1) 현대 민족들의 산각 계보를 정체성 확인하려는 모든 노력들은, 나중에 아담의-피와 섞임으로써 종족들이 발전을 이룩하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이다.

64:7.13 (728.2) 우월한 종족들은 북쪽 또는 온화한 지방을 찾았지만, 반면에 오렌지색과 녹색 그리고 남색 종족들은 서쪽 방향으로 퇴각하는 지중해와 인도양을 분리시키는 새로 융기된 연결-육지를 지나, 계속하여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하였다.

64:7.14 (728.3) 마지막 산각 민족들은 그들 종족의 기원 중심지로부터 이주한 남색 인종이었다. 그 무렵에 녹색 인종은 이집트에서 오렌지색 종족을 전멸시켰고, 그렇게 하는 중에 자기들도 크게 세력이 약화되었으며, 거대한 무리의 흑색 이주자들이 지역의 해안선을 따라

팔레스타인을 통과하여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육체적으로 강한 이 남색 인종이 이집트를 점령하게 되었는데, 그 때 그들은 숫자상으로 훨씬 강하였기 때문에 녹색 인종을 전멸시켰다. 이 남색 인종들은 오렌지색 종족 중에서 남은 자들과 녹색 인종 대부분을 흡수하였고, 남색 부족들은 이러한 인종적 혼합에 의해서 눈에 띌 정도로 진보되었다.

64:7.15 (728.4) 그리하여 이집트는, 처음에는 오렌지색 인종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녹색 인종에 의해서, 그 뒤로는 남색(검은 색) 인종에 의해서, 그리고 훨씬 후대에는 남색과 청색 그리고 변화된 녹색 인종들의 혼혈 종족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그러나 아담이 도착하기 훨씬 전에, 유럽의 청색 인종과, 아라비아의 혼합된 종족들이 이집트에서 남색 인종을 몰아내었고 그들은 아프리카 대륙의 먼 남쪽 지방으로 도망갔다.

64:7.16 (728.5) 산길 이주가 밀려들어오자, 녹색과 오렌지색 인종들은 없어졌고, 적색 인종은 북아메리카를 고수하였으며, 황색 인종은 동부 아시아에, 청색 인종은 유럽에, 그리고 남색 인종은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었다.

인도는 2차 산각 종족들의 혼혈 종족과, 갈색 인종, 적색 인종과 황색 인종의 혼혈 종족을 숨겨주었고, 아시아 해안에는 많은 섬들을 갖고 있었다. 보다 우월한 잠재력을 가진 혼혈 종족이 남아메리카의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보다 순수한 안돈-사람들이 유럽의 최고 북쪽 지역,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그리고 북아메리카의 북동쪽에서 살았다.

64:7.17 (728.6) 빙하가 가장 먼 지역까지 확장되어 있는 동안, 가장 서쪽에 있던 안돈 부족들은 바로 바다 가까운 곳까지 밀려갔다. 그들은 현재 잉글랜드 섬인, 남쪽으로 뻗은 좁은 띠 모양의 땅에서 여러 해 동안 살았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되는 빙하 확장에 대한 구전(口傳)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섯 번째의 마지막 빙하가 출현했을 때에는 바다 쪽으로 떠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바다를 탐험한 첫 번째 종족이 되었다. 그들은 배를 만들었고, 겁나게 하는 빙하 침입으로부터 해방되기를 희망하면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들 중의 일부는 아이슬란드에 도착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린란드에 도착하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망한 바다 위에서 갈증과 굶주림 때문에 전멸되었다.

64:7.18 (728.7) 약 80,000년 조금 더 이전에, 적색 인종이 북아메리카의 북쪽 지대로 들어간 직후에, 유란시아 원주민인 이 에스키모 후손들은, 얼어붙은 북해와 확장되는 그린란드의 지역적인 얼음 덩어리에 밀려서, 보다 나은 땅, 새로운 고향을 찾게 되었다; 그들은 다행히도 좁은 해협을 안전하게 건너갔는데, 그 해협은 그 당시에 그린란드와 북아메리카 북쪽 땅 덩어리를 갈라놓고 있었다. 그들은 적색 인종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로 약 2,100년이 지난 후에 그 대륙에 도착하였다. 그 후에, 청색 인종과 섞인 소수의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동하여 후대의 에스키모들과 혼합되었으며, 이 연합은 에스키모 부족들보다 약간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64:7.19 (728.8) 약 5,000년 전에, 고립된 에스키모 집단과 인디언 부족 사이에는 허드슨 만 남동쪽 해안선에서 우연한 만남이 발생하였다. 이 두 부족들은 서로 교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그들은 곧 서로 결혼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에스키모인 들은 결국에는 숫자가 훨씬 많은 적색 인종에게 흡수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후부터, 약 1,000년 전에 백색 인종이 우연히 대서양

해안에 상륙할 때까지, 북아메리카의 적색 인종이 다른 인종과 이루어진 유일한 접촉이었다.

64:7.20 (729.1) 이러한 초기 투쟁들의 특징은 용기와 용맹 그리고 영웅심이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너희의 초기 조상들의 순수하고 강건한 그 특색들 중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후대의 종족들에게서 없어진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진보된 문명의 그 많은 개선의 가치들을 깊이 알아차리고는 있지만, 때로는 숭고함과 웅대함에 가까웠던, 너희 초기 조상들이 보여주었던 숭고한 끈기와 장엄한 헌신을 다시 보고 싶다.

64:7.21 (729.2)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생명운반자에 의하여 제시되었음]

제 65 편 진화의 전반적-통제

65:0.1 (730.1) 기본적인 진화하는 물질적 생명—전(前)마음 생명—은, 임명된 생명운반자들의 활동적인 임무와 연대하여, 주(主)물리통제자들과 일곱 주(主) 영들의 생명-분배 사명활동에서 형성된 고안이다. 이러한 삼중(三重) 창조성의 조화-협동 기능의 결과로, 마음에 관한 유기체에서의 물리적 수용 능력—외부 환경적 자극에,

이어서 나중에는, 내부적 자극에, 곧 유기체적 마음 자체 안에서 기원을 취하면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지능적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적 기능구조—이 발전된다.

65:0.2 (730.2) 그 때, 생명 생산과 진화에서의 세 개의 뚜렷하게 구별되는 차원들이 있다:

65:0.3 (730.3) 1. 물리적 에너지 권역—마음-수용능력 생산.

65:0.4 (730.4) 2. 보조 영들의 마음 사명활동—영 수용능력에 영향을 줌.

65:0.5 (730.5) 3. 필사자 마음의 영 자질—생각 조절자의 증여에서 정점에 달함.

65:0.6 (730.6) 유기체적 환경 반응들의 기계적이고 학습 불가능한 차원들은 물리통제자들의 권역들이다. 보조 마음-영들은 순응할 수 있거나 또는 마음의 비(非)기계적 학습 가능 유형들—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유기체의 반응 기능구조들—을 활성화하고 규제한다. 그리고 영 보조자들이 그렇게 마음의 잠재들을 조종하는 것처럼, 생명운반자들은 인간의 의지—하느님을 알 수 있는 힘 그리고 그를 경배하는 선택의 힘—가 나타나는 순간까지

진화 과정의 환경적 양상들을 상당히 사려 깊은
분별력으로 통제한다.

65:0.7 (730.7) 거주되는 세계들에서 유기체 진화의 과정을
결정하는 것은 생명운반자들과 물리통제자들 그리고 영
보조자들의 집대성되는 기능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화—유란시아의 또는 다른 곳의—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목적이 있다는 이유이다.

제 1 장. 생명운반자의 기능

65:1.1 (730.5) 생명운반자들은 창조체들이 소유하는 몇 개
계층의 개인성 변환의 잠재들을 자질로서 부여받았다.
지역우주의 이 아들들은 세 가지 다른 실존 위상에서
기능할 수 있다. 그들은 대개, 그들 기원의 실존 상태인,
중간-위상 아들들로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그러한 실존 단계의 생명운반자는, 전기 화학적 권역에서
물리적 에너지와 물질 입자들을 살아있는 실존 단위로
만드는 자로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

65:1.2 (730.6) 생명운반자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기능할 수 있다:

65:1.3 (730.7) 1. 전기화학의 물리적 차원.

65:1.4 (730.8) 2. 준(準)-모론시아 실존인 통상적 중간-위상.

65:1.5 (730.9) 3. 진보된 반(半)영적 차원.

65:1.6 (731.1) 생명운반자들이 생명 이식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작업 장소를 선정한 후에, 그들은 생명운반자 변형에 대해 천사장 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집단은 열 개의 서로 다른 개인성 계층들로 구성되며, 물리통제자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이 포함되어 있고,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허락과 가브리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수용능력 안에서 행사하는, 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통솔한다. 이 존재들이 알맞게 순환회로화 되면, 그들은 생명운반자들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전기-화학의 물리적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 그러한 변형들을 일으킬 수 있다.

65:1.7 (731.2) 생명 원형틀들이 형성되고 물질적 유기체들이 충분히 완료된 후에, 생명 증식에 관계되는 초물질적 기체들이 즉시 활동하게 되며, 생명이 실존하게 된다. 그 후에 생명운반자들은 그들의 정상적인 중간-위상의

개인성 실존으로 즉시 돌아오며, 그러한 신분에서 그들은, 비록 살아있는 물체의 새로운 원형틀을 조직—창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단위들을 조종할 수 있고 진화하는 유기체들을 움직일 수 있다.

65:1.8 (731.3) 유기적 진화가 특정한 과정을 마치고 인간 유형의 자유의지가 가장 높은 진화 유기체들에서 나타나게 되면, 생명운반자들은 행성을 떠나든지 아니면 포기서약을 해야만 한다, 그것은, 그들이 유기체 진화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시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행성에서, 미래의 충고자들로 남기를 선택한 생명운반자들의 자발적인 서약들이 받아들여진 후에, 새롭게 진화된 의지적 창조체들의 양육이 위탁될 것이며. 체계 주권자의 권한에 의해서 그리고 가브리엘의 허락에 의해서 활동하는 저녁별들의 우두머리가 통솔하는 12인 위원회가 소집 된다; 그리고 이 생명운반자들은 즉시로 개인성 실존의 세 번째 위상—반(半)영적 차원의 존재—로 변형된다. 그리고 나는 유란시아에서 안돈과 폰타의 시대 이후로 줄곧 이러한 세 번째 위상의 실존으로 활동하고 있다.

65:1.9 (731.4) 우리는 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되는 때, 우리가 온통 영적인 상태가 될 가능한 네 번째 존재 단계를 고대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기법에 의해서 이 바람직하고 진보된 신분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제 2 장. 진화의 파노라마

65:2.1 (731.5) 해초(海草)로부터, 지구의 창조들의 지배자 신분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상승에 대한 이야기는 생물학적 투쟁과 마음의 생존의 소설이다. 사람의 최초 조상들은 문자 그대로 고대의 내륙 바다에 광대한 해안선의 완만한 난류 만(灣)들과 초호들의 해양 지층에 있는 점액과 분비물이었으며, 바로 그 물속에 생명운반자들이 유란시아에 세 개의 독립된 생명 이식(利息)을 정착시켰던 것이다.

65:2.2 (731.6) 동물처럼 보이는 어중간한 경계선의 유기체들로 귀착된 이 신기원적인 변화 과정에 관련하였던 해양 식물의 초기 유형의 종들이 극소수만이 오늘날 실존하고 있다. 해면체들은 이 초기의 중간유형들 중에서 하나가 살아남은 것들이며, 그 유기체들을 통하여 식물로부터

동물로 점차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 초기에 변화 형태들은. 현재의 해면체와 똑같지는 않지만, 매우 흡사하였다; 그것들은 정말로 어중간한 경계선상의 유기체들—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이었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동물 형태의 생명으로 발달되었다.

65:2.3 (732.1) 박테리아는, 매우 원시적 성질의 단순한 식물 유기체들, 초기 생명의 여명으로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기생 습성에서 오히려 어느 정도 퇴화를 보인다. 많은 곰팡이들도 진화에 있어서 퇴행 운동을 나타내어, 엽록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잃어버린 식물로서 거의 기생성이 되어있다. 병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들 대부분과, 그와 유사한 다수의 바이러스 몸체들은 실제로 변질된 기생 진균류의 집단에 속한다. 중간 시대들 동안 거대한 전체 식물 생명계가 조상들로부터 진화되었고, 반면에 박테리아는 동일한 조상들로부터 퇴보하였다.

65:2.4 (732.2) 동물 생명의 보다 높은 원생동물 유형이 바로 출현하였고, 갑자기 나타났다. 그리고 전형적인 단일 세포 동물 유기체인 아메바가, 이 아득히 먼 옛날부터 존재해 오고 있지만,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그것은 생명 진화에서

최후의 가장 큰 성취를 이루었을 때 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은 형태로 살아 있는 것이다. 미세한 이 생물과 이것과 유사한 원생동물들은, 박테리아가 식물 왕국을 이룬 것처럼, 동물 창조를 이룩하였다; 그것들은 생명 분화(分化)와 함께 뒤이어지는 발전의 실패에서 최초의 초기 진화 단계들의 잔존을 대변한다.

65:2.5 (732.3) 오래지 않아 초기의 단세포 동물 유형들은 서로 군(群)으로 연관되었고, 처음에는 볼복스의 형태로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는 히드라와 해파리 종류로 형성되었다. 훨씬 뒤에는 불가사리, 돌 백합, 성게, 해삼, 지네, 곤충, 거미, 갑각류, 그리고 밀접한 관련을 갖는 지렁이와 거머리들로 진화되었으며, 연체동물들—굴, 낙지, 달팽이—이 그 뒤를 이었다. 수백 가지 종들이 중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지만, 길고 긴 투쟁에서 살아남은 것들에 대해서만 언급된다. 그러한 진보되지 못한 표본들은, 나중에 나타난 어류(魚類)와 함께, 오늘날 초기의 하등동물들의, 진보에 실패한 생명나무의 가지들의, 고정된 유형들을 대변한다.

65:2.6 (732.4) 그렇게 하여 최초의 척추동물인 물고기가 출현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졌다. 이 어류로부터 두 가지 독특한 변경, 개구리와 도롱뇽이 나타났다. 그리고 동물 생명에서 일련의 진보적인 분화를 시작하여 결국에는 사람으로 최고점에 도달하는 것은 개구리였다.

65:2.7 (732.5) 개구리는 최초의 살아남은 인간-종족의 조상들 중의 하나이지만, 이 오랜 시대들에서와 같이 오늘 날까지 존속하는, 그것 역시 진보에 실패하였다. 개구리는 현재 지구 위에 살아있는 초기 여명기 종족들의 종(種) 조상일 뿐이다. 인간 종족은 개구리에서부터 에스키모인 까지 사이에 살아남은 조상이 없다.

65:2.8 (732.6) 개구리로부터 실질적으로 멸종된 거대한 동물과인 파충류가 나왔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조류 전체와 수많은 계층들의 포유류들이 그것들로부터 기원되었다.

65:2.9 (732.7) 인간-이전(以前)족의 모든 진화의 가장 큰 도약은 아마도 파충류로부터 조류가 생겼을 때일 것이다. 오늘날의 조류 유형들은—독수리, 오리, 비둘기, 그리고

타조—모두 멀고 먼 옛날의 수많은 파충류들로부터 유래되었다.

65:2.10 (732.8) 개구리 과에서 유래된 파충류들의 세계는 오늘날 생존된 네 부류로 대표 된다; 뱀과 도마뱀 그리고 그들과 동류인 악어와 거북이같이 두 개의 비(非)진보적인 부류들, 조류와 같이 부분적으로 진보적인 부류, 포유동물의 조상과 그리고 인간 종들의 직접적인 가계인 네 번째 부류이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일시적이었던 파충류의 거대(巨大)함은 코끼리와 마스토돈에서 잔향이 발견되며, 그들의 독특한 형태가 켁충 켁충 뛰는 캥거루를 통하여 영속되고 있다.

65:2.11 (733.1) 유란시아에는 오직 14개의 분류 문(問)이 나타났으며, 어류가 마지막을 장식하였고, 조류와 포유류 이후에는 새로운 종류가 발전되지 않았다.

65:2.12 (733.2) 태반을 가진 포유류가 갑자기 솟아 나온 곳은, 민첩하고 체구가 작지만 비교적 큰 뇌를 가진 육식성 파충류 공룡에서 었다. 이 포유동물들은 급속도로 그리고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되었고, 현대의 일반적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고래와 물개 등과 같은

해양 생명 유형과 박쥐 류(類)처럼 공중을 날아다니는
형태로 진화되었다.

65:2.13 (733.3) 그리하여 사람은 주로 동-서쪽의 보호된
고대(古代) 바다에서 생명의 서부 이식으로부터 유래된
고등 포유류로부터 진화되었다. 살아있는 유기체들의
동부와 중부 집단들은 동물 실존의 인간-이전(以前)족
단계들의 성취를 위하여 초기에 유리하게 진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들이 지나면서, 생명 설치의 동부
중심은, 그것의 가장 높은 유형의 세포 원형질 형태의
반복적이고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손실들을 당하여 인간
잠재성들 복구할 수 있는 힘을 언제까지나
잃어버림으로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지능적 인간-
이전(以前)족 상태의 달성에 실패하였다,

65:2.14 (733.4) 이 동부 집단에서 발전을 위한 마음 수용력의
본질특성이 다른 두 집단들에 비해서 결정적으로
열등하였기 때문에, 생명운반자들은, 그들 상급자들의
허락 하에, 진화하는 생명의 이 열등한 인간-
이전(以前)족의 혈통들을 더욱 제한하도록 환경을
조종하였다. 겉으로 볼 때에는 열등한 이 창조체 집단들의

도태가 우연한 현상이지만, 실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의도적이었다.

65:2.15 (733.5) 지성의 진화적 전개의 후기에는, 인간 종족들의 조상인 여우원숭이는 다른 지역들보다 북아메리카에서 훨씬 더 진보되었다; 그 결과로 그것들은 서부 생명 이식의 장(場)으로부터 베링 연결-육지를 지나 해안선을 따라 남서부 아시아로 이주하도록 인도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계속 진화하였고 중앙 생명 집단의 특정한 혈통들이 첨가됨으로 이익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특정한 서부 및 중부의 생명 혈통들로부터 나왔지만 중앙의 근동 지역들에 진화하였다.

65:2.16 (733.6) 유란시아에 심어진 생명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빙하시대까지 진화하였으며, 그때에 사람이 처음 나타났고 행성에서의 다사다난한 삶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빙하기 동안에 지구 위에 원시인의 출현은 단순히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었다. 빙하기의 고됨과 기후의 혹독함은, 엄청난 생존 자질과 함께 인간 존재의 강인한 유형의 생성을 육성하려는 목적에 모든 면에서 수용되었다.

제 3 장. 진화의 육성

65:3.1 (733.7) 초기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많은 기묘함과 명백히 괴상한 사건들을 지금-현재의 인간 마음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살아있는 생명들의 보기에는 이상한 진화들의 모든 것들에 두루 의도적인 계획이 기능하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일단 작동하기 시작한 후에는 생명 원형틀들의 개발에 임의적으로 간섭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금지되어 있었다.

65:3.2 (733.8) 생명운반자들은 사용 가능한 모든 재료들을 수용할 수 있었고, 생명 실험의 발달 과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우연한 환경들을 무엇이든지 그리고 전부 이용할 수 있었지만, 우리들은 식물은 물론 동물의 진화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간섭한다든지 아니면 그 행위성과 경로를 임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65:3.3 (733.9)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은 원시 개구리의 발전을 통하여 진화되었다는 것과, 하나의 개구리 안에 있는 잠재에서 수행된 이 상승하는 혈통은 특정한 상황에서 멸종되는 것을 가까스로 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기에 어떤

우연한 현상에 의해서 인류의 진화가 멈추어질 수도 있었다고 추론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들은 인간-이전(以前)족 발전의 다양한 원형틀들로 지향될 수 있는 1,00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그리고 멀리에 위치한 변형하는 생명의 혈통들을 주시하면서 육성하고 있었다. 이 특정한 개구리 조상은 우리가 세 번째로 선택한 것이었으며, 그 전에 선택하였던 두 생명 혈통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각별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멸종되고 말았다.

65:3.4 (734.1) 만일 안돈과 폰타가 자손을 낳기 전에 죽었다면 인류의 진화가 늦어졌을 가능성은 있었겠지만, 그것이 아주 중단될 수는 없었다. 안돈과 폰타가 출현한 후, 그리고 동물 생명으로부터 변이되는 인간 잠재가 소진되기 전에, 인간 유형으로 어느 정도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7,000가지 이상의 유리한 혈통들이 진화되었다. 그리고 이 우수한 혈통들의 대부분은 여러 갈래로 확장하는 인류 종족들에게 나중에 동화되었다.

65:3.5 (734.2) 생물학적 향상자인 물질아들과 딸이 행성에 도착되기 훨씬 전에, 진화하는 동물 종족들의 인간 잠재는

모두 소진되었다. 동물 생명의 이러한 생물학적 지위는 보조 영이 동원되는 세 번째 위상의 현상에 의해서 생명운반자들에게 알려졌으며, 그 세 번째 위상은 인간-이전(以前)족 개별존재들 속에 있는 돌연변이 잠재에 기원이 되는 모든 동물 생명의 능력이 소진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부수적 현상이다.

65:3.6 (734.3) 유란시아에 있는 인류는 현재의 인간 혈통들이 가지고 있는 필사자 발전의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앞으로도 영원히 인간-이전(以前)족의 근원들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종족들이 진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필사 종족들 속에 여전히 내포되어 있는 진화 잠재를 지능적으로 육성시킴으로써 인간의 발전을 더 높은 차원으로 달성하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의지가 나타나기 전에 생명운반자인 우리들이 생명 혈통들을 육성시키고 보존하려고 행하였던 것을, 진화의 적극적인 참여에서 우리가 물러난 후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진화 운명은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으며, 통제되지 않는 자연적인 선택과 우연한 생존의 무작위의 기능은 과학적인 지성이 곧 대체하여야만 한다.

65:3.7 (734.4) 그리고 진화에 대한 육성을 토의함에 있어서, 앞으로 있을 먼 훗날에, 너희가 어느 날 생명운반자 무리단에 배속을 받게 되면, 생명을 운영하고 이식(移植)시키는 계획과 기법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개선책을 조성하고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엄청나게 많이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을 것이다. 느긋하게 있어라! 너희가 만일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만일 너희 마음 들이 우주 영역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나은 관리-행정방법의 풍부한 창조력이 있다면, 너희는 너희 연관-동료 그리고 친구 관리-행정자들에게 그것들을 제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갖게 될 것이다.

제 4 장. 유란시아의 모험

65:4.1 (734.5) 유란시아가 생명-실험 세계로 우리들에게 배정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라. 이 행성에서 우리는 네바돈의 생명 설계들을 사타니아에 적용시킴에 있어서 가능한, 개선하고 변형하기 위한 60번째의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표준 생명 원형틀들에 대한 유익한 변형을 많이 성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상세히 말한다면, 우리가 유란시아에서 열심히 일하였고, 모든 미래의

시간에 두루 네바돈 전체에게 봉사로 이바지할 28가지 이상의 생명 변형체들을 만족스럽게 실증하였다.

65:4.2 (735.1) 그러나 전혀 시도된 적이 없고 알려지지 않은 것이 시도되었다는 의미에서 세상에서의 생명 조성은 결코 실험적이 아니다. 생명의 진화는 항상 진보적이고 차별적이며 변화적인 하나의 기법이지만, 우발적인 의미에서 우연이거나 통제되지 않거나 온통 실험적인 경우는 전혀 없다.

65:4.3 (735.2) 인간 생명의 많은 면들은, 필사자 실존의 현상이 지능으로 계획되었으며, 유기체적 진화가 단순한 조화우주의 우연한 현상이 아니었다는 풍부한 증거를 제공한다. 살아있는 세포가 상처를 입게 되면, 그것은 인접해 있는 정상적인 세포들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상처 치료 과정을 촉진시키는 특정한 물질들을 즉시 분비하도록 할 수 있는 특별한 화학 물질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 정상적인 세포들과 상처받은 세포들은 증식을 시작한다.—그것들은 사고에 의해서 파괴되어진 어떤 동료 세포들을

대체하도록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실제로 시작한다.

65:4.4 (735.3) 상처 치료와 세포 번식 작용에 관련된 이 화학적 작용과 반응은, 생명운반자들이 100,000 가지가 넘게 가능한 화학적 반응과 생물학적 반향(反響)의 위상과 특성들을 내포하고 있는 어떤 공식을 선택하였음을 나타낸다. 생명운반자들이 유란시아 생명 실험을 위하여 이 처방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기 전에, 그들의 실험실 안에서 500,000번 이상의 특별한 실험들을 수행하였다.

65:4.5 (735.4) 유란시아의 과학자들이 이러한 치료하는 화학물질들을 더 많이 알게 되면, 그들은 더 효과적으로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특정한 치명적인 질병들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될 것이다.

65:4.6 (735.5) 생명이 유란시아에 조성된 이후로, 생명운반자들은, 사타니아에 있는 다른 세계들에 소개된 것과 같이, 이 치료 기법을 계속 개선시켰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더욱 감소시키고 연관된 정상 세포들의 증식 수용능력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통제를 잘 제공하였다.

65:4.7 (735.6) 유란시아에서의 생명 실험에는 많은 독특한 특성들이 있었지만, 두 가지 특기할만한 에피소드들은, 여섯 가지 유색 인종들이 진화이전에 안돈의-종족의 출현과, 그 후에 하나의 가족 안에서 산각 돌연변이체들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었다. 유란시아는 사타니아에서 여섯 개의 유색 인종들이 동일한 가계로부터 나타나게 된 최초의 세계였다. 보통으로는 그들은 인간-이전(以前)족의 동물 계통에서 독립된 변이를 통해 여러 가지 혈통들로 나타나며, 통상적으로 한 번에 한 종류씩 그리고 적색 인종으로부터 시작하여 남색 인종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땅 위에 나타난다.

65:4.8 (735.7) 특기할만하게 변동된 또 하나의 과정은, 행성영주가 늦게 도착한 점이다. 일반적으로, 영주는 의지 개발 시점에 행성에 나타난다; 그러한 계획이 그대로 시행되었었다면, 칼리가스티아가 거의 500,000년 이후에 여섯 가지의 산각 종족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도착하는 대신, 안돈과 폰타가 살아있을 때 유란시아에 왔었어야 했다.

65:4.9 (735.8) 통상적으로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서는 안돈과 폰타의 출현 시에, 또는 그 뒤에 언젠가, 생명운반자들의 요청을 받고 나서, 행성영주가 허락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변형 행성으로 유란시아는 지정되었음으로, 12명으로 구성된 멜기세덱 관찰자들이 행성영주가 나중에 도착할 때까지 행성의 감시자들로 그리고 생명운반자들에게 충고자들로 파견되도록 사전에 약속되어 있었다. 안돈과 폰타의 시대에 도착된 이 멜기세덱들은 생각 조절자들이 그들의 필사자 마음에 내주 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었다.

65:4.10 (736.1) 유란시아에서 사타니아 생명 원형틀들을 증진시키려는 생명운반자들의 노력은, 겉으로 보기에 쓸모없는 형태의 수많은 과도기적 생명을 필연적으로 생성하는 결과를 가져왔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소득들은, 표준 생명 설계들의 유란시아 변형들을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하다.

65:4.11 (736.2) 유란시아의 진화적 생명 안에서 의지의 이른 현시활동을 산출하려는 것이 우리들의 의도였으며, 우리는 성공하였다. 일반적으로, 의지는 유색 인종들이

오랫동안 실존했었기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보통 적색 인종의 우월한 유형에서 우선 나타난다. 너희가 사는 세계는, 사타니아에서, 유색 인종이 나타나기 전에 인간 유형의 의지가 나타난 유일한 행성이다.

65:4.12 (736.3) 그러나 인간 종족의 포유류 조상들에게 최종적으로 발생시킨 유전 인자들의 조합과 관계적-연합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들이 노력함에 있어서, 우리는 수백 수천 가지의 서로 다른 그리고 비교적 쓸모없는 유전 인자들이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상태에 직면하고 있었다. 우리가 수고하는 과정의 부산물로 보이는 이러한 것의 많은 것들이, 너희가 지구의 과거를 되돌아보려고 노력할 때 알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제한된 인간적 견해로 볼 때 얼마나 당황스러운 것이 될지 나는 잘 알고 있다.

제 5 장. 생명-진화 변천

65:5.1 (736.4) 유란시아에서 지능적 생명의 변경을 위한 우리들의 특별한 노력이, 우리의 통제 한계를 벗어난 비극적인 과오들: 칼리가스티아의 배반과 아담의-

불이행에 의해서 심하게 방해를 받은 것은 생명운반자들에게 유감스러운 일들의 근원이 되었다.

65:5.2 (736.5) 그러나 이 생물학적 모험의 전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가장 큰 실망은, 예기치 못한 정도로 그토록 광범위하게 특정한 원시적 식물 생명이 엽록소 이전 차원의 기생 박테리아로의 퇴화에서 기인되었다. 식물 생명 진화의 이 생겨나는 것은 고등의 포유동물들에게 많은 괴로운 질병들을 유발시켰으며, 특별히 더욱 취약한 인간 종족들에게 심하였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중에 아담의-생명 원형질의 혼합이 그 결과로 나타난 혼혈 인종의 저항 힘이 보강되어, 식물 형태 유기체에 의해 발생한 모든 질병에 실천적으로 면역되도록 만들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포함된 어려움들을 어느 정도 무시했었다. 그러나 아담의-불이행의 불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희망들은 실망으로 되었다.

65:5.3 (736.6) 유란시아라고 불리는 이 작은 세계를 포함하여, 우주들의 우주는 단순히 우리의 동의에 부합하거나 또는 단순히 우리의 편리에 맞추도록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더군다나 우리의 일시적인 만족과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정도로 운영되는 일은 결코 없다. 우주를 운영하는 책임을 갖는 현명하고도 만능이신 존재들은 자기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생명운반자들이, 필사 마음들 편에 서서, 기다리는 인내심을 동원하여 지혜의 원칙과 힘의 통치 그리고 진보의 행진에 진심으로 협조하게 되는 것이다.

65:5.4 (736.7) 물론 시련에 대한 특별한 보상,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증여되는 것과 같은 일들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고려 사항에 상관없이, 이 행성의 후기(後期) 천상 감독자들은 인간 종족의 궁극적 진화의 승리와 그리고 우리의 기원적 계획과 생명 원형틀들의 생겨나는 입증에 완벽한 자신감을 표명하였다.

제 6 장. 생명의 진화적인 기법

65:6.1 (737.1)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와 정확한 위치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한쪽을 측정하려고 시도하면 반드시 다른 쪽의 변화가 포함되게 되어 있다. 필사 사람이 원형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할 때에도 똑같은 종류의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화학자가 죽은 원형질의 화학적 성질을 밝혀낼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원형질의 물질적 조직이나 역동적 행태는 식별할 수 없다. 과학자들이 생명의 비밀에 계속 가까이 접근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형질을 죽여야만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것들을 영원히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죽은 원형질은 살아있는 원형질과 똑같은 무게를 갖지만, 그 둘은 똑같지 않다.

65:6.2 (737.2) 살아있는 물체와 존재들 속에는 적응해 나가는 기원적인 자질이 들어 있다. 모든 살아있는 식물 또는 동물 세포 속에, 모든 살아있는 원형질—물질적 또는 영적—에는 환경적 조절과 유기체적 적응 그리고 증강된 생명 실현에서의 언제까지나-증가하는 완전의 달성을 위한 만족할 줄 모르는 열망이 있다. 살아있는 모든 물체들의 이러한 끝없는 노력들은 그들 내부에 완전을 위한 타고난 투쟁심이 실존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65:6.3 (737.3) 식물 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엽록소-생성 능력이었으며, 두 번째로 큰 진전은 홀씨가 복잡한

씨앗으로 진화한 것이었다. 홀씨는 생식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지만, 씨앗에서 선천적인 다양성과 융통성의 잠재는 결여되어 있다.

65:6.4 (737.4) 보다 높은 유형의 동물들의 진화에 있어서 가장 봉사할 수 있고 그리고 복잡한 에피소드 중의 하나는, 순환하는 혈액 세포 속에 있는 철분이 산소를 운반해 주고 이산화탄소를 제거시키는 이중적 역할을 하는 능력이 개발된 것이었다. 그리고 적혈구 세포의 이러한 작용은 진화하는 유기체들이 변화하고 바뀌는 환경에 자기들의 기능을 어떻게 적응시킬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사람을 포함하여 보다 높은 동물들은 적혈구 세포에 들어 있는 철분의 활동에 의해서 그들의 세포 조직체 속에 산소를 공급하며, 그것들은 살아있는 세포들에게 산소를 가져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준다. 그러나 다른 금속 성분들도 똑같은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오징어 속에는 이러한 기능을 위해 동(銅)을 사용하며, 멍게는 바나듐을 이용한다.

65:6.5 (737.5) 그러한 연속적인 생물학적 조절은, 유란시아의 보다 높은 포유류들의 이빨의 진화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은

사람의 먼 조상들에서 36개의 이빨을 달성하였고, 여명기의 사람과 가까운 친척들에서는 32개의 방향으로 적응하는 재 조절을 시작했다. 이제 인간 종들은 28개 쪽으로 서서히 끌려가고 있다. 진화 과정은 지금도 여전히 이 행성에서 활동적으로 그리고 적응되도록 진행되고 있다.

65:6.6 (737.6) 그러나 보기에 신비한 살아있는 유기체들의 조절은 순전히 화학적인 것이며 전적으로 물질적인 것이다. 모든 인간 존재의 혈액 흐름 속에는, 12개의 내분비선에서 분비된 호르몬들 사이의 15,000,000개 이상의 화학적 반응 가능성들이 어떤 순간이든지 존재하고 있다.

65:6.7 (737.7) 보다 열등한 형태의 식물 생명은 물질적, 화학적, 전기적 환경에 전적으로 응답한다. 그러나 생명의 등급이 상승될 때, 일곱 보조 영들의 마음 사명활동들이 하나씩 하나씩 작동하게 되며, 마음은 점점 더 조절적, 창조적, 조화-협동적 그리고 지배적이 되어간다. 공기와 물과 땅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동물들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자질이 아니라, 초(超)물리적 조절이다.

65:6.8 (738.1) 초기 바다의 원시 시대 원형질로부터 어떻게 인간이 진화되어 나타났는지를 물리학이나 화학이 단독으로 설명할 수 없다. 학습의 능력, 환경에 대한 차별적인 반응은 마음의 자질이다. 물리적 법칙들은 훈련에 반응하지 않는다; 불변적이고 항상 일정하다. 화학적 반응들은 교육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다; 항상 일정하고 믿을 수 있다. 분별불가 절대자가 현존에서 벗어나, 전기적 화학적 반응들은 예측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체험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며, 반복되는 충동에 응답하는, 행동의 반응적 습관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65:6.9 (738.2) 지능이전의 유기체들도 환경적 자극에 반응을 하지만, 마음 사명활동에 반응적인 그 유기체들은 환경 자체를 조절하고 변경시킨다.

65:6.10 (738.3) 물리적 뇌는 그것과 연결된 신경 체계와 함께, 개인성의 발전하는 마음이 영 접수성을 위한 어떤 타고난 수용능력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영적 진보와 달성을 이룰 수 있는 잠재를 담아 안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마음 사명활동에 응답하는 타고난 수용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지적, 사회적, 도덕적, 영적 진화는, 일곱 보조 영들과 그들의 초물질적 연관-동료들의 마음 사명활동에 의존된다.

제 7 장. 진화하는 마음 차원

65:7.1 (738.4) 일곱 보조 마음-영들은 지역우주의 보다 열등한 지능 실존들에게 다재다능한 마음 사명활동자들이다. 이 마음 체제는 지역우주 본부들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떤 세계로부터 봉사되지만, 보다 낮은-마음 기능의 영향력 있는 지도가 체계 중심지들로부터 있다.

65:7.2 (738.5) 진화적인 세계에서는, 이러한 일곱 보조 존재들에게 많이, 매우 많이 의존한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 사명활동자들이다; 그들은 생명운반자들의 권역인 물리적 진화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영 자질과, 예정되고 자연적인 과정으로 드러나는 생명운반자들의 선천적 체제와의 완전한 집대성활동은, 모든 일들이 그것이 물질과 연관됨에 따라 마음의 자연적 반응과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설명하는 데에 너희가 때때로 다소 갈팡질팡은 하지만, 자연의 손길과 자연적 과정의 결과 이외의, 마음의 현상으로 인식하는 데에

필사자의 무능력을 초래한다. 그리고 만일 유란시아가
기원적 계획과 좀 더 일치되도록 운영되었다면, 너희는
마음 현상에 보다 덜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다.

65:7.3 (738.6) 일곱 보조 영들은 실존개체라기보다는
순환회로와 비슷하며, 일상적인 세계들에서 그들은
지역우주에 두루 기능하는 다른 보조와 순환회로를
이루고 있다. 어쨌든, 생명-실험 행성들에서, 그것들은
비교적 고립되어 있다. 그리고 유란시아에서는, 생명
원형틀들의 독특한 본성 때문에, 보다 낮은 보조들은,
진화적 유기체들과 접촉하는 데 있어서 더 표준화된
유형의 생명 자질이 이루어진 경우보다, 훨씬 더 심한
어려움을 체험했다.

65:7.4 (738.7) 다시 말해서, 일곱 보조 영들은, 그들이
유란시아에 있었던 경우보다, 평균적인 진화 세계에서
동물적인 발달의 전진 단계들과 훨씬 더 잘 동조된다.
네바돈의 우주 전반에 걸친 그들의 모든 기능들에서
그들이 가졌었던 것들 중에 오직 한 가지 예외로, 유란시아
유기체들의 진화적인 마음들과의 접촉에서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체험하였다. 이 세계에서는 많은 형태의

임계현상들—기계적이고 학습 불가능한 그리고 기계적이 아니고 학습 가능한 유형의 유기체적 반응들의 뒤죽박죽 배합—이 발전되었다.

65:7.5 (739.1) 일곱 보조 영들은 유기체적 환경 반응의 순전히 기계적인 계층들과는 접촉을 이루지 않는다. 살아있는 유기체들의 지성이전의 반응들은 순전히 힘의 중심지, 물리통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들의 에너지 권역에 속한다.

65:7.6 (739.2) 체험들로부터 배우는 능력의 잠재성을 획득하는 것은 보조 영들의 기능이 시작을 표시하며, 그들은 원시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존들의 가장 하등의 마음들로부터 인간 존재들의, 진화단계에서 가장 높은 유형에 이르기까지 기능한다. 그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다소간 신비스러운 행동으로 그리고 미완성적으로 납득되는, 물질적 환경에 대한 마음의 신속한 반응을 위한 근원과 원형틀이다. 이러한 신실하고 항상 믿을 수 있는 영향들은, 동물적 마음이 인간 차원의 영 접수성을 달성하기 전에, 그들의 예비적인 봉사를 오랫동안 수행해야만 한다.

65:7.7 (739.3) 보조 존재들은 여섯 번째 위상, 경배의 영의 차원까지, 체험하는 마음의 진화에 있어서 배타적으로 기능한다. 이 차원에는 필연적으로 사명활동이 겹치는 일—더욱 높은 차원이 아래로 뻗어 내려와서, 뒤이어 발생하는 발전의 향상된 차원의 달성을 예상하고 있는, 낮은 차원과 조화-협동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계속하여 추가적인 영 사명활동은 일곱 번째의 그리고 마지막 보조자인, 지혜의 영의 활동을 동반한다. 영 세계에서 의 사명활동에 두루, 개별존재는 결코 영 협동에서의 갑작스러운 전환들을 체험하지 않는다; 이들 변화는 항상 점진적이고 그리고 상호적이다.

65:7.8 (739.4) 환경으로 인한 자극에 반응하는 물리적(전기 화학적) 그리고 정신적 응답의 권역은 항상 차별되어야만 하며, 그리고 또한 그들은 모두 영적 활동들과는 동떨어진 현상으로 인지되어야만 한다. 물질적, 정신적, 영적 중력 권역들은, 그들의 밀접한 상호관계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구별되는 조화우주 실체 영역들이다.

제 8 장. 시간과 공간에서의 진화

65:8.1 (739.5) 시간과 공간은 분해 될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다; 타고난 관계적-연합이다. 특정한 공간 조건의 현존 안에서, 시간의 자연은 필연적이다.

65:8.2 (739.6) 만일 생명 발달의 진화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 곤혹스러움을 일으킨다면, 나는, 우리가 행성이 허용하는 물리적 변형들보다 그 어떤 조금이라도 더 빨리 펼치도록 생명 과정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고 대답하고 싶다. 우리는 행성의 자연적 물리적 발전을 기다려야만 한다; 지질학적 진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다. 만일 물리적인 조건들만 허용한다면, 우리는 백만 년보다 상당히 짧은 시간에 생명 진화가 완성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파라다이스의 최극 통치자들의 관할권 아래에 있으며, 파라다이스에는 시간이 실존하지 않는다.

65:8.3 (739.7) 시간 측정을 위한 개별존재의 척도는 그의 삶의 길이이다. 모든 창조체들은 그렇게 시간으로 필요조건이 한정되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화를 너무-오래-끄는 과정존재로 간주하는 것이다. 수명이, 일시적인 실존으로

제한되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진화가 그토록 질질 끄는 활동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실존하지 않는 파라다이스에서는, 이것들이 무한의 마음과 영원의 활동 안에서 모두 현재이다.

65:8.4 (739.8) 마음 진화는 천천히 나아가는 물리적 조건들의 발전에 달려있고,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영적 진보도 정신적 확대에 달려있고, 지적인 지연으로 어김없이 늦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진화가 교육이나 문화 또는 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혼은 정신적 문화에 상관없이 진화할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정신적 수용능력과 욕망—생존에 대한 선택과 그리고 언제까지-증가하는 완전을 성취하려는 결정—이 없을 때에는 그럴 수 없다. 비록 생존이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는 데에 달려있지는 않겠지만, 진보는 아주 확실하게 그러한 것에 달려있다.

65:8.5 (740.1) 조화우주의 진화 실험실에서 마음은 항상 물질을 지배하며, 영은 언제까지나 마음과 상관관계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자질들이 동조를 이루고 조화-협동을 이루는데 실패하면, 시간의 연기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만일 개별존재가 실제로 하느님을 알고 그를 발견하여
그와 같이 되기를 갈망한다면, 시간의 장애와 상관없이
생존이 보장된다. 물리적 지위가 마음을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 정신적 왜곡이 영적 달성을 지체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들 장애물 중 그 어떤 것도 온통-혼에서
나오는 의지의 선택을 좌절시킬 수는 없다.

65:8.6 (740.2) 물리적 조건들이 무르익었을 때, 갑작스런 정신적
진화가 발생할 수 있다; 마음 상태가 순조롭고 좋을 때,
갑작스런 영적 변환이 발생할 수 있다; 영적 가치들이
적절한 인지를 받아들일 때, 그러면 조화우주 의미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 개인성은 점점 더 시간의
장애들로부터 풀려나며, 공간의 한계로부터 해방된다.

65:8.7 (740.3)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네바돈의 생명운반자에
의해서 후원됨]

제 66 편 유란시아의 행성 영주

66:0.1 (741.1) 일반적인 세계에 라노난텍 아들이 도래하였다는
사실은 의지, 영원한 생존의 행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원시인의 마음속에 개발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유란시아에서는 그 행성영주가 인간 의지의 출현으로부터 거의 500,000년 이후에 도착하였다.

66:0.2 (741.2) 약 500,000년 전에 그리고 여섯 가지의 유색 인종 또는 산각 종족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행성영주인 칼리가스티아가 유란시아에 도착하였다. 영주가 도착하였을 때 지구 위에는 약 5억 명의 원시 인간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에 고르게 퍼져 있었다. 영주의 본부는 메소포타미아에 세워졌고 세계 인류의 중심지가 되었다.

제 1 장. 칼리가스티아 영주

66:1.1 (741.3) 칼리가스티아는 라노난텍 아들이었고, 2차 계층에서 9,344번이었다. 그는 대개 지역우주의 관련사들을 관리-행정하는 체험을 하였고, 후대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사타니아 지역 체계를 운영하는 일을 하였다.

66:1.2 (741.4) 루시퍼가 사타니아를 통치하기 전까지는, 칼리가스티아가 예루셈에 있는 생명운반자 충고자 협의회에 배정되어 있었다. 루시퍼는 칼리가스티아의 지위를 자신의 직속 참모 위치까지 높여주었고, 그는

명예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5개의 계속적인 과업을 훌륭하게 이행하였다.

66:1.3 (741.5) 칼리가스티아는 매우 일찍부터 행성영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애를 썼지만, 별자리 협의회의 허락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상정될 때마다, 별자리 아버지들의 찬성을 계속적으로 얻지 못하였다. 칼리가스티아는 10진(十進)법 소수의 세계 즉 생명-변형의 세계에 행성 통치자로 보내지기를 특별히 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최종적으로 유란시아에 배정되기 전에 그의 청원은 여러 차례 기각되었었다.

66:1.4 (741.6) 칼리가스티아는 어떤 특징적 불안감이 어떤 사소한 문제들 속에 이미 내려진 명령을 거부하려는 경향과 결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원되었고 머무르고 있는 그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였던 기록을 가지고 세계 지배에 대한 자신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예루셈으로부터 나아갔었다.

66:1.5 (741.7) 영리한 칼리가스티아가 그 체계의 수도에서 떠나갈 때, 나는 예루셈에 있었다. 행성들에 있는 어떤 영주도, 세계 통치 생애에서 칼리가스티아가 500,000년

전의 그 중대한 날에 갖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예비
체험이나 더 훌륭한 성공 가능성을 가진 적이 없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건을 지역우주에 알리기 위해
서술하는 나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나는 훌륭한 이
라노난덱이 행성 보호관리자들의 신뢰를 그토록 신속하게
배반하고, 우주적인 아들관계의 고귀한 계급에 붙여지는
아름다운 그 이름을 그토록 끔찍하게 더럽히리라고는, 한
순간도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실제로
유란시아가, 세계의 관련사들에 대하여 주관하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숙련되고 총명하고 기원적인 마음을
갖추도록 예정됨으로써, 전체 사타니아 행성들 중에서
가장 운이 좋은 5개 내지 6개 행성에 포함될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나는 그 때 칼리가스티아가 음흉하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그 당시에 개인성의 교활한 자부심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 2 장. 영주의 참모진

66:2.1 (742.1) 유란시아의 행성영주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단독으로 파견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보좌관
무리단과 행정 조력자들을 대동하였다.

66:2.2 (742.2) 이 집단의 수뇌부에는 행성영주의 연관-동료이자-보좌관인 달리가스티아가 있었다. 달리가스티아도 역시 2차 라노난덱 아들이었고, 그 계층에서 319,407번이었다. 그는 칼리가스티아의 동료로 배정되었을 때 하나의 보좌관의 위치에 있었다.

66:2.3 (742.3) 그 행성 참모진 속에는 수많은 천사 협력자들이 있었고, 인간 종족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배정된 다른 천상의 존재들 집단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너희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집단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영주의 참모들 중에서 육체의 모습을 갖는 구성원들일 것이다—때로는 칼리가스티아 100인이라고 불린다.

66:2.4 (742.4) 영주의 참모들 중에서 재(再)물질화된 100명의 이 구성원들은, 유란시아 모험을 착수하는데 나서기로 자원한 785,000명의 상승하는 예루셈 시민들 중에서 칼리가스티아가 선택한 존재들이었다. 선택된 100명 각자는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자들이었고, 유란시아에서 온 자는 아무도 없었다.

66:2.5 (742.5) 예루셈의 시민인 이 자원봉사자들은 운송 세라핌천사에 의해서 그 체계 수도로부터 직접 유란시아로 옮겨졌고, 도착과 동시에 그들은 행성 특별 임무의 이원적(二元的) 본질을 갖는, 글자 그대로의 삶과 피로 구성된 육체를 가졌지만 또한 한편 체계의 생명 순환회로에 조율되어 있는, 개인성 형태가 제공될 수 있을 때까지 천사들의 보호를 받았다.

66:2.6 (742.6) 이들 100명의 예루셈 시민들이 도착되기 얼마 전에, 유란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두 명의 감독하는 생명운반자는, 이미 그들의 계획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었고, 영주의 참모의 유형 요원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투사되는 물질 몸체 속으로, 안돈과 폰타 줄기 중에서 선택된 100명의 생존자들의 생명 원형질이 이식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예루셈과 에덴시아에 탄원하였다. 그 요청은 예루셈에서 승락되었고 에덴시아에서 승인되었다.

66:2.7 (742.7) 그에 따라서, 안돈과 폰타의 후손 중에서, 그 독특한 인종에서의 가장 좋은 혈통들의 생존자를 대표하는, 50명의 남자들과 50명의 여자들이 생명운반자들에 의해 선택되었다. 한 두 사람의 예외는

있지만, 종족의 향상에 기여자들인 이들 안돈-사람들은 서로 낯선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들로부터 조화-협동된 생각 조절자의 지도와 세라핌천사의 안내에 의하여 영주의 행성 본부 입구로 집합되었다. 여기서 100명 인간 주체들은 아발론으로부터 온 고도로 능숙한 자원자 위원회의 손에 맡겨졌고, 그들은 이들 안돈족속들의 생명 원형질에서의 한 부분의 물질적 추출을 지도하였다. 살아있는 이 물질은 그러고 나서, 영주의 참모의 100명 예루셈족 요원들이 사용하도록 지어진 물질적 몸체로 이동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새로 도착된 이들 체계 수도의 시민들은 천사의 운송에서의 잠 속에서 머물러 있었다.

66:2.8 (742.8) 이들 활동행위는, 칼리가스티아 100인을 위해 특별한 육체가 말 그대로 창조됨과 동시에, 수많은 전설들이 만들어지게 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아담과 이브가 행성에 취임한 것과 관련된 후대의 전통들과 나중에 혼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66:2.9 (743.1) 재(再)개인성구현의 전체 활동행위는, 100명의 예루셈 자원봉사자들, 영역의 삼중적 존재들을 운송

세라핌천사들이 보호하여 도착된 때로부터 그들이 의식을 갖게 되기까지, 정확하게 10일이 소요되었다.

제 3 장. 달라마시아—영주의 도시

66:3.1 (743.2) 행성영주의 본부는 그 당시의 페르시아 만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후대의 메소포타미아 지구(地區)와 일치되는 곳이었다.

66:3.2 (743.3) 그 시대의 메소포타미아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은 영주의 참모진과 그들의 보좌관들이 일하기에 모든 면에서 유리한 상태에 있었고, 그것은 그 이후 널리 알려지고 나서 종종 맞이했던 조건과 매우 달랐다. 원시 유란시아인 들로 하여금 문화와 문명에 있어서 특정한 초기 진보를 이룩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자연적인 환경의 일부분으로써 그러한 순조로운 기후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 시대의 가장 큰 과업의 하나는, 사람들이 나중에 평화를-사랑하는, 집에-거주하는 농부로 진화하리라는 희망과 함께, 사람들을 사냥꾼으로부터 목자(牧者)로 변환시키는 것이었다.

66:3.3 (743.4) 유란시아에 있는 행성영주의 본부는 새로 조성되고 발전이 이루어지는 구체에 있는 전형적인

장소였다. 영주가 정착한 장소의 중심부는 매우 단순한 모습이었지만 아름다운 도성이었고 40피트에 달하는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세계적인 문화 중심지는 달리가스티아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달라마시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66:3.4 (743.5) 그 도성은 10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유형 참모들로 구성된 10개 의회의 본부 건물들이 각 구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 도성의 가장 중심부에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성전이 있었다. 영주와 그의 연관-동료들의 행정-관리적 본부는 성전에 바로 이어서 배열된 12개의 회관에 배치되어 있었다.

66:3.5 (743.6) 달라마시아에 있는 건물들은 모두 단층이었고, 2층으로 되어 있는 위원 본부와, 그리고 규모는 작지만 높이가 3층으로 되어있는 만유의 아버지의 중앙 성전만이 예외였다.

66:3.6 (743.7) 그 도성은 건물 재료—벽돌—에 있어서 그러한 초기 시대로서는 가장 훌륭한 실천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돌과 나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집 건물과 마을 고안건축은 달라마시아의 견본에 따라서 크게 발전하였다.

66:3.7 (743.8) 영주의 본부 근처에는 모든 색깔과 계층의 사람들이 거주하였다. 그리고 영주의 학교에 처음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부족들로부터 모집되었다. 달라마시아에 있는 이 초기 학교들은 비록 미숙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시적인 그 시대의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였다.

66:3.8 (743.9) 영주에게 소속된 유형 참모진들은 주변에 있는 부족들 중에서 우월한 개별존재들을 쉬지 않고 모았으며, 그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영감(靈感)을 불어넣은 후에는, 그들 각각의 민족들에게 선생과 영도자들이 되도록 돌려보냈다.

제 4 장. 100인의 초기 시절

66:4.1 (743.10) 영주의 참모진의 도착은 심오한 감동을 창조하였다. 소식이 널리 퍼지기까지는 거의 1,000년이 소요되었지만, 메소포타미아 본부 근처에 있는 부족들은 새로 유란시아에 머물게 된 그 100인의 가르침과 행위성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후일에

너희의 신화(神話)들 대부분은, 영주 참모진의 이들
요원들이 유란시아에서 초인적(超人的) 사람으로
재(再)개인성구현된 이 초기 시대의 전설들이 점점 더
왜곡되면서 생긴 것이다.

66:4.2 (744.1) 그러한 가외-행성 선생들의 훌륭한 영향력에 대한
심각한 방해물은 그들을 하느님들로 간주하려는
필사자들의 경향이었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 출현한
기법을 제외하고 칼리가스티아 100인—50명의 남자와
50명의 여자들—은 초자연적인 방법이나 초인간적인
조종을 사용하지 않았다.

66:4.3 (744.2) 그러나 유형 참모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인간들이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색다른 삼중적
존재로서 유란시아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시작하였다:

66:4.4 (744.3) 1. 그들은 육체의 형태를 가졌고 비교적 인간에
가까웠는데, 이는 그들이 인간 종족들 중 하나의 실재 생명
원형질로 체현되었기 때문이며, 그것은 유란시아에
있었던 안돈의-생명 원형질이였다.

66:4.5 (744.4) 영주의 참모진 중에서 이 100명의 요원들은 그들이 전에 필사자이었을 때의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숫자의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었다. 이 집단에 속한 각각의 사람들은 부모가 되어 어떤 새로운 계층을 갖는 육체적 존재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오직 특별한 조건 아래에서 어버이 관계를 이루도록 조심스럽게 지시되었다. 어떤 행성영주에게 소속된 유형 참모진들에게는, 특별한 행성 봉사로부터 은퇴하기 전에 때때로 후계자를 낳는 것이 관례였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행성 아담과 이브가 도착되는 시기 또는 그 직후에 일어난다.

66:4.6 (744.5) 그러므로 특별한 이 존재들은 자신들의 성(性)적인 연합에 의해서 어떤 유형의 창조체가 출산되는지에 대하여 거의 또는 전혀 관념을 갖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알려진 적이 전혀 없었다; 그들 세계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러한 단계의 시기가 이르기 전에 전체의 체제가 반란에 의해서 혼란에 빠졌고, 부모가 되는 역할에 나중에 기능하였던 그들은 그 체계의 생명 흐름들로부터 이미 고립되어 있었다.

66:4.7 (744.6) 칼리가스티아 참모들 중에 물질화된 이 요원들은, 피부 색깔과 언어에 있어서, 안돈의-종족과 동일한 상태에 있었다. 그들은 영역의 필사자들과 똑같이 음식을 섭취하였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다시 창조된 육체를 갖는 이 집단들은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풍성한 과일과 나무 열매들이 있는 따뜻한 지역에 거주하도록 결정한 조건들 중의 하나였다. 고기를 먹지 않고 살아가는 그 실천 관행은 칼리가스티아 100인의 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관습은 가까운 곳과 먼 곳에 퍼져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부족들, 한 때 고기만을 먹었던 진화하는 종족들로부터 기원된 집단들의 식사 습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66:4.8 (744.7) 2. 그 100인은 물질적이지만 초인간적인 존재였고, 높고 특별한 계층의 독특한 남자들과 여자들로서 유란시아 위에 재구성되고 있었다.

66:4.9 (744.8) 이 집단은, 예루셈에서 임시 시민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에, 아직 자기들의 생각 조절자와 융합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며, 아들관계를 가지고 하강하는 계층들과 연락을 맺으면서 행성 봉사를 수행하는 일에

그들이 자원하고 또 허락을 받았을 때, 그들의 조절자들은 분리되었다. 그러나 이 예루셈 거주자들은 초인간적 존재였다—그들은 상승 성장하는 혼을 소유하고 있었다. 필사자 생명이 육신 속에 있는 동안, 혼은 태아 상태에 있다; 그것은 모론시아 생명 속에서 태어나고 (부활되고) 계속되는 모론시아 세계들을 통하여 성장되는 체험을 한다. 그리고 칼리가스티아 100인의 혼들은 7개의 맨션세계들을 점진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을 지나 예루셈에서 시민신분의 지위를 얻기까지 그렇게 확대된 바가 있었다.

66:4.10 (744.9) 자기들에게 내려진 명령을 준수하여, 그 참모진들은 성(性)적 연락을 통한 생산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의 개인적 구조에 대하여 열심히 연구하였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적 (마음) 위상들과 모론시아 (혼) 연락을 신중히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성벽이 완성되기 훨씬 이전인, 그들이 달라마시아에 머물게 된지 33년째 해에, 단의 후예 집단들 중에서 2번과 7번이 자신들의 모론시아 자아들의 (성(性)구별이 없고 비(非)물질 존재로 간주되는) 연락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이러한 진기한

체험의 결과로 나타난 존재는 첫 번째 1차 중도 창조체들이 판명되었다. 새로운 이 존재는 행성 참모진과 그들의 천상(天上)의 연관-동료들에게는 전적으로 가시적(可視的)이었지만, 여러 인간 종족들의 남자와 여자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행성영주의 지시에 따라서, 유형 참모진 전체는 동일한 존재들의 생산에 참여하였고, 단의 후예이며 선구자 격인 그 쌍의 지시에 따라서 모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영주의 참모진은 결국에는 50,000명의 1차 중도자들로 구성된 기원적인 무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66:4.11 (745.1) 이러한 중간적-유형의 창조체들은 그 세계적 본부의 관련사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큰 봉사를 감당하였다. 그들은 인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달라마시아에 원래부터 머무는 자들은 이 반(半)영적 존재들을 계속 가르쳤고, 여러 세대 동안 그들은 진화하는 이 필사자들에게 총체적인 영 세계를 설립하였다.

66:4.12 (745.2) 3. 칼리가스티아 100인은 개별적으로 영원한 또는 죽지 않는 존재들이다. 그들의 물질적인 형상을 통하여 그 체계의 생명 흐름들의 해독(解毒) 보완물들이

순환되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명 순환회로와의 접촉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나중에 하느님의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 또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하보나와 파라다이스를 향한 여행을 그 후에 언젠가 다시 시작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계속 살고 있었을 것이다.

66:4.13 (745.3) 사타니아 생명 흐름들의 이 해독 보완물들은 생명나무의 열매, 칼리가스티아가 도착할 때 놀라시아텍에 계신 지고자에 의해서 유란시아로 보내진 에덴시아의 나무 열매로부터 추출되었다. 달라마시아의 시대에, 이 나무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성전 뜰 중앙에서 자라고 있었으며, 영주의 참모진의 물질적 존재들과 다른 필사 존재들은 이 나무의 열매를 획득할 수 있는 한 무기한적으로 계속 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나무 때문이었다.

66:4.14 (745.4) 진화하는 종족들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었지만, 칼리가스티아 100인들과 또한 그들과 연관되었던 변형된 100인의 안돈-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음식이 계속적으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66:4.15 (745.5) 이것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만 할 것은, 100명의 안돈-사람들이 인간의 근원적인 원형질을 영주의 참모진들에게 기증하였을 당시에, 생명운반자들은 그들의 필사 육체 속으로 그 체계 순환회로들의 보완물을 삽입시켰다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육체적인 죽음에 구애받지 않고 그 참모진들과 함께 여러 세기 동안 같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이다.

66:4.16 (745.6) 결국에는, 100명의 안돈-사람들은 그들의 상급자들의 새로운 형태를 위해 자신들이 기여하였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바로 이 100명의 안돈 부족들의 자녀들은 영주의 유형 참모진의 개인 수행원으로 본부에서 남아 있었다.

제 5 장. 100인 무리의 조직

66:5.1 (745.7) 그 100인들은 각각 10명으로 구성된 자치 협의회를 구성하여 봉사를 수행하도록 조직되어 있었다. 이 10인 협의회들 중에서 두 개 이상이 합동으로 모일 때에는, 함께

모아진 그러한 연락들을 달리가스티아가 총괄하였다.
이러한 10인 집단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66:5.2 (745.8) 1. 양식과 물질적 번영 관할 협의회. 이 집단은 양이 통솔하였다. 인간 종족들의 양식, 물, 의복, 그리고 물질적인 증진은 유능한 이 대원들에 의해서 육성되었다. 그들은 우물을 파는 것과 샘을 통제하는 법 그리고 물을 대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들은 보다 높은 고도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북쪽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가족을 처리하여 의복으로 사용하는 발전된 방법을 가르쳤고, 나중에는 기술과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들에 의해서 천을 짜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66:5.3 (746.1) 음식을 저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큰 진보가 이루어졌다. 음식은 익히는 방법과 말리는 방법 그리고 그을리는 방법에 의해서 보존되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가장 초기의 재산이 되었다.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세상을 격감시키는 굶주림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우게 되었다.

66:5.4 (746.2) 2. 동물 길들이기와 이용 담당위원회. 이 협의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인간 존재들 자체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그들을 돕는 일에, 음식 제공에, 그리고 나중에는 땅을 일구는 봉사에 가장 적합한 동물들을 선택하고 사육하는 임무에 전념되었다. 유능한 이 대원들은 본이 통솔하였다.

66:5.5 (746.3) 지금은 멸종된 몇몇 종류의 유용한 동물들이 길들여졌었고, 오늘날까지 길들여진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것들도 있었다. 개는 오래 전부터 사람과 함께 살았고, 청색 인종들은 이미 코끼리를 잘 길들일 수 있었다. 소는 음식을 위한 유용한 공급원이 될 수 있도록 조심스러운 개량 작업을 통하여 많이 개선되었고; 버터와 치즈는 인간을 위한 흔한 음식 품목이 되었다. 사람들은 짐을 나르는 일에 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웠지만, 말의 경우에는 후대까지도 길들여지지 않았었다. 이 위원회에 속한 그들은 쉽게 끌어당기기 위하여 바퀴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었다.

66:5.6 (746.4)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도 이 시대였고, 소식을 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위해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었다. 본이 지휘하는 이 집단은 여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거대한 환도르 새들을

훈련시키는 데 성공하였지만, 그것들은 30,000년 전에 멸종되었다.

66:5.7 (746.5) 3. 육식동물정복에 대한 충고자들. 초기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정한 동물들을 길들이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였으며, 그 외에도 공격적인 동물 세계에서 살아남은 것들에 의해 파멸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하였다. 이 집단은 단이 우두머리였다.

66:5.8 (746.6) 고대 도시들이 성벽을 쌓은 목적은 적대적인 인간들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막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한 성벽이 없는 곳이나 숲에서 사는 사람들은 나무 위, 바위 움막 속, 그리고 밤에는 불을 피워 놓는 방법에 의지해야만 하였다. 그러므로 이 선생들이 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거주지를 개선시키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지 않을 수 없었다. 개선된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함정을 이용함으로써, 동물을 정복하는 일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66:5.9 (746.7) 4. 지식의 보급과 관리를 담당하는 선생. 이 집단은 그 초기 시대의 순전히 교육적인 노력에 대하여 조직하고 지도하였다. 팻이 통솔하였다. 팻의 교육 방법은 증진된 방법의 노동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고용인들을 감독하는 일로 이루어져 있었다. 팻은 최초의 알파벳을 조직적으로 구성하였고 쓰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 알파벳은 25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초기 사람들이 글씨를 쓰기 위한 재료로는 나무껍질과 진흙 판, 돌 판, 동물 가죽을 망치로 두드려 만든 양피지 형태, 그리고 말벌 집으로 만든 종이처럼 생긴 조잡한 형태의 물질 등이 사용되었다. 달라마시아에 있는 도서관은, 칼리가스티아의 이탈 직후에 파괴되었는데, 2백만 개 이상의 분리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팻의 집"으로 알려져 있었다.

66:5.10 (746.8) 청색 인종은 부분적인 알파벳을 사용하였고 그 쪽 방면으로 큰 진보를 이루었다. 적색 인종은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글씨를 쓰기를 좋아하였던 반면, 황색 인종은 말들과 관념들을 위해 상징들을 사용하는 쪽으로 바뀌어갔으며 오늘날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반란이 일어남에 따라서 혼란이 계속되는 동안 알파벳은 물론 아주 많은 것들이 후대의 세계에 전해지지 못하였다.

칼리가스티아의 배반은, 적어도 말할 수 없이 많은 시대 동안, 하나의 보편적인 언어에 대한 세상의 희망을 무너뜨렸다.

66:5.11 (747.1) 5. 산업과 무역을 담당하는 위원회. 이 협의회는 서로 좋은 관계를 갖는 여러 집단들 사이에 거래를 증진시키는 일과, 부족들 안에 산업을 조성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들의 영도자는 낯이었다. 원시 제조업의 모든 형태는 이 무리단에 의해서 권장되었다. 원시인들의 상상력을 유도하는 많은 새로운 상품들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키는 일에 기여하였다. 그들은 과학과 예술을 전담하는 협의회에 의해서 생산된 개선된 소금의 거래를 매우 널리 확대시켰다.

66:5.12 (747.2) 최초의 상업적인 신용 한계 개념이 실천적이 된 것은 달라마시아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깨우친 집단 속에서였다. 사람들은 중앙 신용 교환소로부터 실재 물건들을 물물교환으로 주고받는 것을 대신하도록 인정되어진 동전을 확보하였다. 세계는 수 십 만년동안 이러한 장사 방법에 진전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66:5.13 (747.3)

6. 계시된 종교를 가르치는 학교. 이 분야는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느렸다. 유란시아의 문명은 정말로 두려움이라는 망치와 필요성이라는 모루 사이에서 연마됨으로써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집단은, 배반으로 인한 격변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후대의 혼란에 의해서 그들의 노고가 중단되기 전에 창조체의 두려움(유령 경배) 대신에 창조자에 대한 경외심으로 대치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이 협의회(會議)의 수장(首長)은 합이었다.

66:5.14 (747.4)

영주의 참모진 중에서 진화의 과정을 복잡하게 얽히게 되도록 계시를 나타내려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진화의 능력이 모두 소모된 정점에 이르렀을 경우에만 계시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합은 종교적 예배봉사의 형태를 설립하자는 그 도성에 사는 사람들의 요구에 따랐었다. 그의 집단들은 달라마시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위한 일곱 개의 영창을 제공해 주었고, 또한 일상적인 찬양-경구(警句)도 주었고 결국에는 다음과 같은 "아버지의 기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66:5.15 (747.5) “만유의 아버지시여, 그 아들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오니, 은혜로 우리를 내려다 봐 주십시오. 당신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신성한 선생들에게 우리가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입술에 언제까지나 진리가 있게 해 주십시오. 폭력과 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어른들과 우리의 이웃에 속한 어른들을 공경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슴을 기쁘게 할 푸른 풀밭과 계절을 주시고 많은 새끼를 낳을 양 떼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를 들어 올릴 약속된 자가 오기를 속히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리하여 그 너머 세상에서 다른 이들이 하는 것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행하고자 합니다.”

66:5.16 (747.6) 종족 개량에서의 자연적인 수단들과 평범한 방법에 비록 영주의 참모진이 제한되기는 하였지만, 생물학적 발전의 경지에 달성되고 나서, 뒤이어지는 진화적 성장의 목표로서 새로운 종족에 대한 아담의-선물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였다.

66:5.17 (747.7)

7. 건강과 생명의 수호자들. 이 협의회는 공중위생을 소개하는 일과 원시적인 건강법을 증진시키는 일에 관여하였으며, 룯이 인도하였다.

66:5.18 (747.8)

그 요원들은 이후 시대의 혼란기에 소멸되고, 20세기까지도 결코 다시 발견되지 않은 많은 것들을 가르쳤다. 그들은 인류에게 익히는 것과 끓이는 것 그리고 굽는 것이 질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가르쳐 주었고; 또한 그러한 조리법이 유아 사망을 크게 줄여준다는 것과 일찍 젖을 떼 수 있도록 촉진시킨다는 것도 가르쳐 주었다.

66:5.19 (747.9)

룯이 인도하는 건강 수호자들의 초기 가르침들 대부분은, 크게 왜곡되고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 있는 종족들을 통하여 모세의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다.

66:5.20 (748.1)

무지한 이 민족들 속에서 위생법을 증진시킴에 있어서 큰 방해물은, 많은 질병들을 일으키는 실제 원인들이 너무 작아서 맨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있었으며, 또한 그들 모두가 항상 미신적인 시선으로 불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들로 하여금 불에 태우는 의식을 멈추도록 설득하는 데 수천 년이 소요되었다. 한편

그들은 부패되는 쓰레기들을 땅에 묻도록 설득되었다. 이 신(新)시대의 공중위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진보는, 햇빛이 건강을 제공하고 질병을 몰아내는 수단이라는 체험이 보급됨으로써 이루어졌다.

66:5.21 (748.2) 영주가 도래하기 전에는, 목욕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의 종교적인 예식에 해당되었었다. 원시인들에게 하나의 건강 실천 관행으로 자신의 몸을 씻으라고 설득하는 일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다. 릿은 마침내 종교적 선생들을 설득하여, 만유의 아버지께 경배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의 정오 헌신 시간과 연결하여 실천되도록, 정결 예식의 한 부분으로서 물로 몸을 씻는 것이 포함하도록 유도했다.

66:5.22 (748.3) 또한 이 건강 수호자들은 개인적인 친구 관계 확인과 집단적 충성심 상징의 방법으로 서로 침을 교환하거나 피를 마시는 방법 대신에 손을 잡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우월한 영도자들의 가르침에 의한 강제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자, 이들 원시 민족들은 자기들이 전에 시행하던 건강을

파괴하고 질병을 조장하는 무지하고 미신적인 실천 관행들로 신속하게 되돌아갔다.

66:5.23 (748.4) 8. 예술과 과학을 담당하는 행성 협의회. 이 요원들은 초기 인류의 산업 기법을 증진시키고 아름다움에 대한 그들의 개념을 향상시키는 일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들의 영도자는 맥이었다.

66:5.24 (748.5) 예술과 과학은 전 세계적으로 쇠퇴기에 있었지만, 달라마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물리와 화학의 기초 과정을 배웠다. 그릇 제조법이 발달하였고, 장식 기술이 매우 발전되었으며, 인간적 아름다움의 이상(理想)이 크게 진보되었다. 그러나 음악은 보라색 종족이 출현할 때까지 거의 진보되지 못하였다.

66:5.25 (748.6) 이 원시인들은 그들의 선생들이 반복하여 재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기 압력에 대한 실험에 동의하려고 하지 않았다; 억압된 증기의 폭발력에 대한 자신들의 심한 두려움을 결코 극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초기 사람들에게는 빨강계 달구어진 금속이 하나의 공포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침내 금속 그리고 불을 다룰 수 있도록 설득되었다.

66:5.26 (748.7) 맥은 안돈-사람들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청색 인종의 예술을 증진시키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청색 인종과 안돈 혈통의 혼혈 종족은 예술적으로 재능을 가진 후손들을 낳았으며,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각가가 되었다. 그들은 암석이나 대리석을 다루지 않았고, 진흙으로 작업하였으며, 불에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었고, 달라마시아의 정원을 아름답게 꾸몄다.

66:5.27 (748.8) 큰 진전은 가정의 예술품들 중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대부분은 오랫동안 계속된 반역의 암흑기에 사라졌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회복되지 못하였다.

66:5.28 (748.9) 9. 증진된 부족 관계의 통치자들. 이 집단은 인간 사회가 국가 형태로 발전되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툃이었다.

66:5.29 (748.10) 이 영도자들은 부족 간의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들은 서로 충분히 친해진 뒤에 그리고 적당한 심의를 거친 후에 구혼과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순전히 군사적인 전쟁 무용들이 세련하게 다듬어졌고 매우 유용한 사회적 목적에 이바지하였다. 많은 경기 종목들이 소개되었지만, 고대의

이 사람들은 너무 무뚝뚝하였고; 초기의 이 부족들에게는
우아한 유머가 거의 없었다. 행성 반역에서의 뒤따른
집대성-해체활동에서 이들 실천 관행들은 거의 다
사라졌다.

66:5.30 (749.1) 툿과 그의 연관-동료들은, 평화로운 기질을 갖는
집단적 관계적-연합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쟁을 규제하고
다정하게 만들기 위해, 종족간의 조화-협동 관계를 위해,
그리고 부족 정부를 개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달라마시아 근처에서는 보다 진보된 문화가 개발되었고,
이렇게 개발된 사회적 관계들은 보다 멀리 있는
부족들에게 영향을 주어 매우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그러나 영주의 본부에서 널리 보급된 그 문명 원형들은
다른 곳에서 진화된 야만적 사회와는 매우 달랐는데, 마치
남아프리카에 있는 케이프타운의 20세기 사회가 북쪽에
있는 몸집이 작은 부시먼 종족의 미개한 문명과 전적으로
다른 것과 같다.

66:5.31 (749.2) 10. 부족 연관과 종족 조화-협동을 담당하는
대법원. 이 최고협의회는 반에 의해서 지도되었고, 인간
관련사들의 관리를 위탁받은 9개의 다른 특별 위원회들

전체에게 호소하는 법정이었다. 이 협의회는 폭 넓게 활동하였고, 다른 집단들에게 특별히 배정되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맡고 있는, 폭넓은 기능의 협의회였다. 선발된 이 요원들은 유란시아의 대법정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락을 그들이 받기 전에 에덴시아의 별자리 아버지들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었다.

제 6 장. 영주의 통치

66:6.1 (749.3) 세계의 문화 수준은 그곳에 태어난 존재들의 사회적 유산에 의하여 측정되며, 그 문화 발전 속도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새롭고도 향상된 관념에 대한 이해 능력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된다.

66:6.2 (749.4) 전통에게 예속된 상태는 과거와 현재를 정서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안정과 협동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독창성을 억압하고 개인성의 창의력을 노예화시킨다. 칼리가스티아 100인이 도래하여 그 당시의 사회 집단들 속에 개인적인 독창력에 대한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을 때 전 세계는 전통에-사로잡힌 사회관례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비심이 많은 이 교훈은 너무도 빨리 중단되었으므로 그

종족들은 관습에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자유화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풍조는 여전히 유란시아를 심하게 지배하고 있다.

66:6.3 (749.5) 칼리가스티아 100인—사타니아 맨션세계 과정을 마친 자들—은 예루셈의 예술과 문화를 잘 알고 있었지만, 원시 인간들이 들끓는 미개한 행성 위에서는 그러한 지식이 거의 쓸모가 없었다. 지혜로운 이 존재들은 갑작스러운 변환, 또는 그 당시의 원시 종족들을 한꺼번에 향상시키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인간 종족들 속에 이루어지는 느린 속도의 진화를 잘 납득하였고, 지구에 있는 사람의 생활 방식을 변경시키는 급진적인 시도를 현명하게 억제하였다.

66:6.4 (749.6) 10개의 행성 위원회 각각은 자신들에게 위임된 관심사항들을 서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증진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계획은 주변에 있는 부족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을 훈련시킨 후에, 그들을 다시 자기 민족에게로 돌려보내어 사회적인 증진을 일으키는 사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66:6.5 (749.7) 민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서로 다른 민족을 사자로 보내지 않았다. 일정한 부족 또는 종족의 증진 또는 발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은 항상 그 부족 또는 종족의 원주민이었다. 그 100인은 아무리 우월한 종족이라도 그들의 습관이나 사회관례들을 다른 부족에게 강요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성된 각 종족의 사회관례들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들은 항상 인내심을 갖고 작업하였다. 순진한 유란시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회적 관습들을 새롭고도 더 좋은 실천 관행과 바꾸려고 달라마시아에 온 것이 아니라, 우월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과 함께 지냄을 통하여 보다 높은 문화와 접촉함으로써 자기들의 것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그 과정은 느리게 진행되었지만 매우 효과적이었다.

66:6.6 (750.1) 달라마시아의 선생들은 생물학적 진화에 있어서 순전히 자연적인 선택 이외에 의도적인 사회적 선택을 덧붙이고자 하였다. 그들은 인간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그것의 정상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진화를 현저하게 촉진시켰다. 그들의 목적은 진화에 의한 진보였고 계시에 의한 대변혁이 아니었다. 인간 종족은

그들이 갖고 있는 미미한 종교와 도덕을 획득하기까지 오랜 세월을 보냈으며, 깨우친 우월한 존재들이 퇴보된 종족들을 과도한 교훈과 과도한 깨우침에 의해서 증진시키고자 할 때 항상 얻어지는 결과인 혼돈과 당황함에 의해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진보들을 인류로부터 빼앗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이 초인적 존재들은 잘 알고 있었다.

66:6.7 (750.2)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의 중심부에 들어가, 그곳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들의 통제와 지도 아래에서 지내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들 아이들에게 21살이 되면 부모의 모든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만 한다는 가르침으로 이 실천 관행을 그들의 세대 안에서 대체시키려고 애를 쓸 때, 그들에게는 모든 권한은 붕괴되고 오직 혼란만이 야기될 뿐이다.

제 7 장. 달라마시아의 생활

66:7.1 (750.3) 영주의 본부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고 그 시대의 원시인들을 압도할 정도로 설계되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수수한 분위기였다. 동물을 사용하는 경작

법을 소개함으로써 결국에는 농업이 발전되도록 용기를 북돋우는 것이 다른 곳으로부터 도래한 이 선생들의 목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한편으로는 건물들은 유별나게 큰 규모가 아니었다. 그 도성의 성벽 안에 있는 경작지는 약 20,000명의 인구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목초지와 밭을 제공하였다.

66:7.2 (750.4) 중앙에 있는 경배를 드리는 성전과 초인간들로 구성된 10개 위원회 감독 집단들의 관저들 내부는 정말로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들은 깔끔하고 깨끗한 모양, 후대에 개발된 것들과 비교한다면 매우 단순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원시 형태였다. 이 세계 문화의 본부에는, 유란시아에 기원적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방법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66:7.3 (750.5) 영주에게 소속된, 유형 참모진들은 단순하면서도 훌륭한 주거지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세계적인 사회 중심지이며 교육의 본산지인 그곳에 머물면서 학생 관찰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영감을 줄 수 있게 설계된 집이 되도록 그것들을 유지하였다.

66:7.4 (750.6)

명확한 가정생활 체제와 비교적 안정된 장소의 한 주거지에 한 가족이 같이 사는 것이 달라마시아의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주로 그 100인과 그들의 제자들의 모범과 가르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나의 사회적 단위로서의 가정은, 달라마시아의 초인간적 남자와 여자들이 인간들을 지도하여 그들의 손자들과 그 손자들의 자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계획하도록 만들 때까지는 전혀 성공하지 못하였다. 미개인은 자기 자녀만을 사랑하지만 문명화된 사람은 자기 자녀의 자손들도 역시 사랑한다.

66:7.5 (750.7)

영주의 참모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함께 살았다. 정말로, 그들은 자신들의 직계 자녀들은 없었지만, 달라마시아에 있는 원형틀이 되는 50개의 가정들에는, 안돈의-후예와 산각 종족들의 우월한 가정들로부터 집합된 양자 양녀들이 항상 500명 이상 살고 있었다; 이 아이들 대부분은 고아들이었다. 그 아이들은 이 초인적 부모들의 단련과 훈련에 호의를 보였고; 그 후에, 영주의 학교들에서 3년의 과정을 (13세부터 15세 사이에 입학하였음) 마치게 되면, 그들은 결혼을 할 수 있었고,

그들 각각의 인종들 중에서 필요로 하는 부족들에게 영주의 사자로서의 임무를 받아들여졌다.

66:7.6 (751.1) 찢은 학생들이 실습을 통하여 배우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유익한 과제들을 매일 실행함으로써 자기 방법대로 일하는 하나의 산업 학교로서 시행되었던 달라마시아 교육 계획을 후원하였다. 이 교육 계획은 성격을 개발함에 있어서의 사고(思考)와 감정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손으로 직접하는 훈련을 첫 번째로 삼았다. 지시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행해졌다. 남자와 여자들에 모두에 의하여 그리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보조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러한 집단적인 훈련의 반(半)은 성별로 따로 행해졌고; 나머지 반은 협동으로 교육하였다.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수공(手工) 기술을 배웠고 여러 집단이나 반으로 나뉘어 교제하였다. 그들은 자기들과 같은 나이의 집단들과 협동 작업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이 어린 집단들, 나이 많은 집단들, 그리고 어른들과 형제우애를 가지는 훈련도 받았다. 또한 그들은 가족 집단들, 놀이 팀들, 그리고 학교 학급들과 같은 그런 관계적-연합에도 익숙해졌다.

66:7.7 (751.2) 자기들 각각의 종족들과 함께 일하기 위하여 메소포타미아에서 훈련을 받은 후대의 학생들 중에는, 서부 인도의 고지대로부터 온 안돈-사람들이 있었고 적색 인종들 그리고 청색 인종들의 대표자들도 있었다; 더 후대에는 소수의 황색 인종들도 훈련을 받았다.

66:7.8 (751.3) 합은 초기 인종들에게 도덕률을 제시하였었다. 이 규범은 "아버지의 길(道)"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다음과 같은 7개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66:7.9 (751.4) 1. 만유의 아버지 이외에는 어떤 하느님도 경외하지 말며 경배하지 말라.

66:7.10 (751.5) 2. 세계들의 통치자이신, 아버지의 아들에게 반드시 복종할 것이며, 그의 초인간적 연관-동료들을 존중해라.

66:7.11 (751.6) 3. 사람들의 재판관 앞에 불려갔을 때 거짓을 말하지 마라.

66:7.12 (751.7) 4. 남자나 여자 또는 어린아이들을 죽이지 마라.

66:7.13 (751.8) 5. 이웃의 물건이나 가축을 훔치지 마라.

66:7.14 (751.9) 6. 너희 친구의 아내를 범하지 마라.

66:7.15 (751.10) 7. 너희 부모와 부족의 어른들을 경멸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66:7.16 (751.11) 이것은 거의 300,000년 동안 달라마시아의 법이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돌들 위에 이 법이 새겨졌고, 지금도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의 해안선에서 떨어져 있는 물밑에 묻혀 있다. 각 요일마다 이 계명들 중의 하나를 하루 종일 마음속에 묵상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으며, 그것을 식사시간의 감사 기도와 인사로 사용하였다.

66:7.17 (751.12) 이 시대의 날짜 계산은 월력(月曆), 28일을 한 기간으로 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낮과 밤의 하루를 제외하고는 이것만이 초기 사람들에게 알려진 시간 계산법이었다. 7일을 한 주간으로 삼는 방법은 달라마시아의 선생들로부터 배웠으며 7일이 28일의 4분의 1이라는 사실에서 시작되었다. 초(超)우주에서 7이라는 숫자의 의의(意義)는 확실히 그들에게 영적인 암시를 일반적인 시간 계산법에 도입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1주일 기간은 자연적으로 기원된 것이 아니다.

66:7.18 (751.13) 그 도성(都城) 주변에 있는 지방 중에서 100마일 반경까지는 매우 잘 정착되어 있었다. 그 도성에 바로 인접된 지역에는, 영주의 학교들을 졸업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물을 이용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그의 참모진과 그들의 수많은 인간 조력자들로부터 받아들였었던 내용들을 실행에 옮겼다.

66:7.19 (751.14) 인류는 죄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농사 짓는 수고에 떠맡겨진 것이 아니었다. "너희 얼굴에 땀을 흘려야 들의 열매를 먹게될 것이다."라는 말은, 반역자 칼리가스티아의 지도하에 사람이 루시퍼 반란의 어리석음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로 선포된 판결이 아니었다. 땅을 일구는 것은 진화적인 세계 위에서 진보하는 문명의 설립에 있어서 선천적인 것이며, 이 명령은 행성영주와 그의 참모진이 유란시아에 도착한 때로부터, 칼리가스티아가 반역자 루시퍼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였던 그 비극적인 시대까지의 사이에 있었던 300,000년의 기간 전체 동안, 그들의 모든 교훈의 핵심이었다. 땅을 일구는 것은 저주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인간적 활동들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것을

즐기도록 그렇게 허용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다.

66:7.20 (752.1) 반역이 발발하였을 때, 달라마시아에는 거의 6,000명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 숫자 속에는 정규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항상 1,000명 이상의 숫자를 유지하는 방문자들과 관찰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너희는 그 먼 옛날 시대에 있었던 믿기 어려운 진보에 대한 개념을 거의 또는 전혀 가질 수 없으며; 그 당시에 훌륭한 인간들이 획득하였던 모든 것들은, 속임수와 선동으로 점철된 칼리가스티아 파멸 이후에 따라왔던 비천한 영적 암흑기와 끔찍스러운 혼란에 의해서 실천적으로 사라졌다.

제 8 장. 칼리가스티아의 불행

66:8.1 (752.2) 칼리가스티아의 긴 생애를 돌이켜볼 때, 그의 행위성 중에서 주의를 환기시킬만한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였다; 바로 그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였다. 그는 거의 모든 항의하는 무리들을 편드는 경향이 있었고, 완곡하게 비난을 표현하는 자들을 일상적으로 동정하였다. 우리는 권한 밑에 있을 때

불안해하고, 감독하는 모든 형태에 언제나 완곡하게 반항하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초기에 그것을 간파하였다. 상부 조언에는 약하게 화를 내고 상급 권한 밑에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반항적이었던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시행될 때마다, 그는 항상 우주 통치자들에게 충성심을 증명하였고 별자리 아버지들의 명령에 복종하였다. 유란시아에서의 그의 고약한 배반이 있을 때까지 어떤 실제적인 결점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다.

66:8.2 (752.3) 루시퍼와 칼리가스티아 둘 모두에게, 그들의 비판적인 경향과 포착되기 어렵게 자라가는 자아에서의 그들의 자부심 그리고 그와 연관된 지나치게 확대된 자아-중요성의 감정에 대해, 끈기 있게 가르쳐 왔었고 사랑으로 경고하였음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도움을 주려고 하였던 이러한 모든 노력들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난이며 개인적 해방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개입이라고 잘못 해석하였다. 칼리가스티아와 루시퍼 둘 모두, 자신들의 친절한 충고자들이 매우 과심한 동기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심판하였고, 그러한 동기는 그들 자신의 왜곡된 생각과 잘못된 계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 진화하고 있는 이기심으로, 사심-없는 충고자들을 심판하였다.

66:8.3 (752.4) 칼리가스티아 영주가 도착한 이후로, 행성 문명은 상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의 300,000년 동안 진보를 이루었다. 생명-변형의 구체로 지정되었던 것과, 그로 인하여 수많은 변칙들 그리고 진화적 불안정의 특이한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것을 제외한다면, 루시퍼의 반란과 그와 동시에 일어난 칼리가스티아 배반의 시대가 있기 전까지, 유란시아는 그 행성 생애에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게 진전을 이루었다. 그 뒤에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이러한 비극적인 큰 실책에 의해서, 그리고 후대에 아담과 이브가 자신들의 행성 임무를 완성시키지 못하고 실패함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변형되었다.

66:8.4 (752.5) 유란시아의 영주는 루시퍼 반란이 있을 때 암흑 속으로 들어갔으며, 그리하여 이 세상이 오랫동안 혼란 속에 빠지게 하였다. 그는 나중에 별자리 통치자들의 조화-협동하는 조치와 다른 우주적 권한자들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겼다. 그는 아담이 지구에 머물게 될 때까지 고립된 유란시아의 어쩔 수 없는 상태에 함께 머물러 있었고,

새로운 보라색 인종—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의 생혈(生血)이 주입됨으로써 필사 종족들에게 증진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계획이 실패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다.

66:8.5 (753.1) 인간들의 관련사들을 교란시키는 그 타락한 영주의 힘은 아브라함 시대에 필사자로 육신화 되었던 마키벤타 멜기세덱에 의해서 크게 줄어들었다; 미가엘이 육신 속에 사는 동안, 이 배반자 영주는 유란시아에서의 모든 권한을 최종적으로 빼앗겼다.

66:8.6 (753.2) 유란시아에 있는 개인적인 마귀에 대한 교리는, 배반하고 사악하게 불의한 칼리가스티아의 행성 현존에 어느 정도 기초를 두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마귀”가 정상적인 인간 마음의 자유롭고 자연본성적인 선택에 반하여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르침에서는, 전적으로 허구이다. 심지어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증여되기 전에도, 칼리가스티아나 달리가스티아는 필사자들을 억누를 수 있는 적이 없었으며,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상적인 개별존재도 인간 의지에 반하여 어떤 일을 하도록 강제할 수는 결코 없었다. 사람의 자유의지는 도덕적 관련사에서

최극이다;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조차도 사람 자신의 의지에 의한 선택에 반하여 단 한번이라도 생각을 바꾸거나 단 한 가지라도 행동하도록 억지로 강제하기를 거절한다.

66:8.7 (753.3) 그리고 지금은, 영역에서 일어난 이 반역은, 전에 자기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모든 힘을 빼앗긴 채로, 유버사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이루어질, 루시퍼 반란에 참여하였던 모든 존재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66:8.8 (753.4)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서 제시되었음]

제 67 편 행성의 반란

67:0.1 (754.1) 유란시아에 있는 인간 실존과 연관된 문제들은, 과거의 위대한 신(新)시대의 지식 없이는 납득될 수 없으며, 그 중에서도 행성의 반란의 발생과 영향들은 더욱 그렇다. 비록 이 대격변이 유기체의 진화 과정에 심각한 방해로 일으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적 진화와 영적인 발전 과정을 현저하게 변경시켰다. 지구의 전체적인 초(超)물리적 역사는 파괴적인 이 재난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제 1 장. 칼리가스티아의 배반

67:1.1 (754.2) 루시퍼의 보좌관인 사탄이 정기적인 검열 방문들 중 하나에 임하고 있을 때, 칼리가스티아가 300,000년 동안 유란시아를 책임 맡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사탄이 지구에 도착하였을 때, 그의 발칙한 장엄함의 태도는 너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였다. 그는 매우 뛰어난 라노난덱 아들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그리고 놀라울 것이 없는 것은, 사탄 자신은 빛으로 창조된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이다.”

67:1.2 (754.3) 이 검열 과정에서, 사탄은 그 당시에 루시퍼가 획책하였던 “자유 선언”에 대하여 칼리가스티아에게 알려주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영주는 그 반란의 공표에 따라서 그 행성을 팔기로 동의하였다. 충성스러운 우주 개인성들은, 신뢰에 대한 이 계획적인 배반 때문에, 특별한 모멸감을 갖고 칼리가스티아 영주를 바라보았다. 창조자 아들은 이 경멸감을 표현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네 지휘자인 루시퍼를 닮았고, 그의 사악한 불의를 악의적으로 영속시키고 있다. 그는 진리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아-고취로 높아지려고 할 때부터 거짓말쟁이었다.”

67:1.3 (754.4) 지역우주의 모든 행정-관리적 작업에 있어서, 새롭게 사람이 살게 된 세계 위에서 진화하는 필사자들의 복지와 안내를 책임 맡은 행성영주에게 부여되었던 것보다 더 신성한 신뢰감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악(惡)의 모든 형태들 중에서, 자기를 신뢰하는 친구에 대하여 신의 없는 행동과 신뢰에 대한 배반보다 더 개인성 지위를 파괴하는 것은 없다. 고의적으로 이러한 죄를 범함에 있어서, 칼리가스티아는 자기 개인성을 너무도 철저하게 일그러뜨렸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그 뒤로 결코 다시 균형을 충분하게 갖출 수 없게 되었다.

67:1.4 (754.5) 죄를 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주 철학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죄(罪)는 조화우주 실체에 대하여 알면서도 저항하는, 한 개인성의 태도이다. 실수는 실체에 대한 오해나 왜곡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악은 우주 실체들에서의 부분적인 실현 또는 우주 실체들에 대한 잘못된 적응이다. 그러나 죄는 신성한 실체에 대한 의도적인 저항—영적 진보에 반대되는 쪽으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며, 반면에 사악한 불의는 인정된 실체에 대한 공개적이고 끈질긴 항거로 이루어져 있고 조화우주

광기(狂氣)에 가까운 개인성 집대성-해체활동의 그러한 정도를 의미한다.

67:1.5 (755.1) 실수는 지적 예민성의 부족을 암시 한다; 악은 지혜의 결핍을 암시하고; 죄는 영적으로 빈곤함을 암시하지만, 사악한 불의는 개인성 통제가 사라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67:1.6 (755.2) 죄가 매우 여러 번 선택되고 자주 반복되면, 습관으로 변할 수 있다. 습관적인 죄인은 쉽게 사악한 불의를 범하게 되며, 우주와 그 신성한 실체들에 대항하여 전심으로 반역하게 된다. 죄에 대한 모든 태도들은 용서받을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상습화된 사악하게 불의한 자가 진지하게 자신의 나쁜 짓을 슬퍼하는 체험을 하거나, 혹은 자기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들일지, 우리는 의심이 든다.

제 2 장. 반란이 발발함

67:2.1 (755.3) 사탄의 검열이 있던 직후에 그리고 행성 관리-행정 당국이 유란시아에서 바야흐로 큰 일들을 실현하려고 하기 직전의 어느 날, 북부 대륙들이 한겨울을 맞고 있을 때, 칼리가스티아는 그의 연관-동료인 달리가스티아와

아주 오랫동안 회의를 가졌고, 그 후에 달리가스티아는 유란시아의 10개 협의회들을 비범한 안건으로 소집하였다. 이 회의가 열리면서 칼리가스티아 영주가 자신을 유란시아의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선언하리라는 성명서가 발표되었고, 모든 관리-행정적 집단들의 직능을 파기함으로써, 행성 정부의 재구성과 관리-행정 권한에서의 각료들을 나중에 다시 배치할 때까지 모든 권한을 양도하여 수탁자인 달리가스티아에게 일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다.

67:2.2 (755.4) 어리둥절케 하는 이러한 요구가 제시된 후에, 조화-협동 기능을 담당하는 최고협회의의 의장인 반의 주도적인 호소가 이어졌다. 뛰어난 실력의 행정-관리자면서 유능한 법학자인 이 위원장은 칼리가스티아가 획책하는 방향이 행성 반란에 가까운 행위라고 낙인을 찍었고, 사타니아의 체계 주권자인 루시퍼에게 상소할 때까지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말 것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호소하였다; 전체 참모진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상소가 예루셈에 제시되었고, 그러자 곧바로 칼리가스티아를 유란시아의 최극 주권자로 임명한다는 명령과 그의 지시에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충성하라는

명령이 즉시 하달되었다. 그러자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한
응답으로, 고귀한 반은 7시간에 걸친 잊을 수 없는 긴
연설을 통하여, 네바돈 우주의 주권에 대한 모독죄로
달리가스티아와 칼리가스티아 그리고 루시퍼에 대한
자신의 고발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였다;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의 지지와 확인 받으려고 호소하였다.

67:2.3 (755.5) 그러는 사이에 체계 순환회로들은 심한 타격을
받았다; 유란시아는 고립되었다. 지구 위에 있는
천상(天上)의 생명 각 집단들은 자신들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고립되었음을, 외부의 모든 충고와 조언이
철저히 차단되었음을 발견하였다.

67:2.4 (755.6) 달리가스티아는 칼리가스티아가 “유란시아의
하느님이고 만유 위에 계신 최극”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되자, 논쟁들이
분명하게 제기되었고; 각 집단들은 독자적으로 물러
나와서 토론하게 되었으며, 그 토론은 지구 위에 있는
초인간적 개인성들 각각의 숙명을 결국에는 결정하는
것이였다.

67:2.5 (755.7) 세라핌천사들과 케루빔들 그리고 다른 천상의 존재들이 이러한 격렬한 투쟁, 길고도 죄로 가득한 투쟁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유란시아가 고립되던 그 당시에 우연히 그곳에 왔던 많은 초인간적 집단들이 이곳에 억류되었고, 세라핌천사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죄(罪)와 정의 둘 중에서—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뜻과 루시퍼의 진로 사이에서—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67:2.6 (756.1) 이러한 투쟁은 7년 이상이나 계속되었다. 각각의 개인성들이 모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간주될 때까지, 에덴시아의 권한자들은 방해하지 않거나 또는 개입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다. 그때까지는 반과 그의 충성스러운 연관-동료들이 변호를 받아들이지 못했으므로, 오래 끌었던 그들의 걱정과 견딜 수 없는 불안으로부터 풀려나지 못했다.

제 3 장. 혹독하였던 7년의 세월

67:3.1 (756.2) 사타니아의 수도 예루셈에서의 반란의 발발은 멜기세덱 협의회에 의하여 널리 방송되었다. 비상시에 활동하는 멜기세덱들이 즉시 예루셈으로 파견되었고,

가브리엘은 권한에 도전을 받게 되었던 창조자 아들의 대리자로 활동할 것을 자진하였다. 사타니아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짐과 동시에 그 체계는 고립되었고 그의 자매 체계들로부터 격리되었다. 사타니아의 본부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 지역우주의 모든 행성에 확산되었다.

67:3.2 (756.3) 유란시아에서는, 100명의 유형 참모진 중에서 40명(반을 포함하여)이 그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 참모진의 인간 보좌관들(변형되고 다른 상태에 있는) 대부분도 역시 미가엘과 그의 우주 정부에 대한 수호자들이 되었다. 세라핌천사들과 케루빔들 중에서는 몹시 많은 개인성들이 손실되었다. 지구에 배정되었던 행정-관리자들과 과도기적 세라핌천사들 중에서는 거의 반(半) 정도가 루시퍼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그들의 영도자와 달리가스티아에게 합류하였다. 1차 중도 창조체들 중에서 40,119명이 칼리가스티아와 손을 잡았지만, 이 존재들 중에서 나머지는 그들의 신뢰에 충실하게 남아 있었다.

67:3.3 (756.4) 반역죄를 지은 영주는 불충한 중도 창조체들과 반역한 다른 개인성 집단들을 집합시켰고, 자기 명령을 수행하도록 그들을 조직하였으며, 반면에 반은 충성된 중도자들과 신실한 다른 집단들을 모았고, 행성 참모진 그리고 고립된 다른 천상의 개인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큰 전투를 개시하였다.

67:3.4 (756.5) 이러한 투쟁이 계속되는 동안, 충성된 존재들은 달라마시아의 동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곳에 마련된 벽이 없고 거의 보호되지 못한 촌락에서 거주하였지만, 그들의 거주지는 깨어서 항상 파수를 보는 충성된 중도 창조체들에 의해서 밤이나 낮이나 보호를 받았으며, 그들은 아주 귀중한 생명나무를 소유하고 있었다.

67:3.5 (756.6) 반역이 발발하게 되자, 충성된 케루빔들과 세라핌천사들은 3명의 신실한 중도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명나무의 관리를 맡게 되었으며, 오직 40명의 충성된 참모진들과 그들의 연관-동료인 변환된 필사자만이 이 에너지 식물의 열매와 잎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그 중에는 그 참모진의 연관-동료인 변형된 안돈-사람들이 56명 있었고, 불충한 참모진의 안돈-사람

수행원 중에서도 16명은 자기들의 주인을 따라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67:3.6 (756.7) 칼리가스티아가 반란을 일으킨 이래 혹독한 7년의 세월 동안, 반은 사람들과 중도자들 그리고 천사들로 구성된 충성된 자기 무리를 돌보는 일에 전적으로 전념하였다. 반으로 하여금 그 우주 정부에 대한 그러한 확고부동한 태도의 충성심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였던 영적 통찰력과 도덕적인 확고함은, 명확한 사고(思考), 현명한 논법, 논리적인 판단, 진실한 의도, 이타적인 목적, 지능적인 충성심, 체험적인 회상(回想), 단련 받은 성격, 그리고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자기 개인성을 주저하지 않고 전념하는 태도의 산물이었다.

67:3.7 (756.8) 기다리면서 보낸 이 7 년의 세월은 마음을 음미하고 혼을 단련시키는 기간이었다. 우주 실증의 관련사에서의 그러한 위기들은, 영적인 선택에 있어서의 한 요소로써 마음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교육과 훈련 그리고 체험은, 진화하는 모든 도덕적 창조체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야 될 요소들이다. 그러나 충분히 헌신된 창조체의 의지로 하여금,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과 방법에 대하여 충성된 헌신을 하는 놀라운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도록, 인간 개인성의 결심-확정 힘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이루는 것은, 내주 하는 영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반의 변형된 인간 연관-동료인 아마돈의 체험 속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67:3.8 (757.1) 아마돈은 루시퍼 반란에 있어서 특출한 인간 영웅이었다. 안돈과 폰타의 후예인 이 남자는 영주의 참모진에게 생명 원형질을 기부하였던 100명 중의 하나였으며,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줄곧 반의 연관-동료이자 인간 보좌관으로 그와 함께 활동하였다. 아마돈은 그 길고도 괴로운 투쟁기간 동안 자기 우두머리와 한 편이 되기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진화하는 종족들의 이 자손들이 달리가스티아의 궤변들에 의해서 동요되지 않고 굳건히 서 있으면서, 7년의 투쟁기간 동안 그와 그의 충성된 연관-동료들이 명석한 칼리가스티아의 현혹하는 모든 가르침들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는 것을 보는 일은, 하나의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광경이었다.

67:3.9 (757.2) 우주의 관련사들에 있어서 광범위한 체험을 소유하고 최고의 지성을 가진 칼리가스티아는 타락하였다—죄를 지었다. 최소한의 지성을 소유하고 우주 체험은 전혀 소유하지 못한 아마돈은, 그 우주에 대한 봉사와 자기 연관-동료에 대한 충성을 확고부동하게 유지하였다. 반은 지적인 결단과 영적인 통찰력의 장엄하고 효과적인 배합을 통하여 마음과 영을 둘 모두 이용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가장 높게 달성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개인성 실현의 체험적 차원을 성취하였다. 마음과 영은, 충분히 연합될 때, 초인간적 가치들, 그리고 심지어는 모론시아 실체들을 창조할 가능성이 있다.

67:3.10 (757.3) 이 비극적인 날들 동안 소란스러운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러나 마침내 마지막 개인성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졌고, 그 후에서야, 유란시아에서의 권한을 몰수하기 위해 에덴시아의 지고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활동하는 멜기세덱들과 함께 도착하였다. 예루셈에서 광범위하게 조사된 칼리가스티아 통치-기록들이 삭제되었고, 행성 재건을 위한 유예 시대가 시작되었다.

제 4 장. 반란 이후의 칼리가스티아 100인

67:4.1 (757.4) 최종적인 출석 점검이 이루어졌을 때, 영주의 참모진 중에서 육체적 형태를 입은 요원들은 다음과 같이 정렬되어 있었다: 반과 그의 조화-협동 법정 전체는 충성된 상태를 견지하였다. 음식을 담당하는 협의회 중에서 앙과 3명의 요원이 살아남았다. 동물을 이용한 경작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모두 반란에 가담하였고 동물-지배 충고자들 전원도 마찬가지로였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진 중에서 5명과 짖은 생존되었다. 산업과 상업을 담당하는 위원회 전체와 낫은 칼리가스티아에게 가담하였다. 종교를 계시하는 전체 무리들과 합은 반과 그의 훌륭한 일행들과 함께 충성된 존재로 남아 있었다. 건강을 담당하는 위원회 전체와 톳은 멸망하였다. 예술과 과학을 담당하는 협의회 전체가 충성된 상태로 남았지만, 부족 정부를 담당하는 위원회 전체와 톳은 타락하였다. 그리하여 100명 중에서 40명이 구원되었고, 나중에 예루셈으로 옮겨졌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파라다이스를 향해 계속 여행하였다.

67:4.2 (757.5) 행성 참모진 중에서 반역에 가담한 60명은 자기들의 영도자로 낫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반역한 영주를 위하여 전심으로 일하였지만, 그 체계의 생명 순환 경로의 생명 양식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필사 존재의 지위로 퇴보하였다는 사실에 눈을 뗀던 것이다. 그들은 정말로 초인간적 존재였지만, 동시에 물질적이고 필사 존재였다. 그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달리가스티아는 즉시 성(性)적 방법으로 번식하도록 명령하였으며, 기원적인 60명과 변형된 44명의 안돈-사람 연관-동료들이 죽음에 의해서 곧 소멸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달라마시아가 함락된 후에 불충한 그 참모진들은 북쪽과 동쪽으로 이주하였다. 그들의 후손들은 오랫동안 낫-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며 그들이 거주하던 장소는 "낫의 땅"이라고 불려졌다.

^{67:4.3 (758.1)} 반란으로 인하여 오도 가도 못하게 된, 특출한 이 초인간적 남자와 여자들의 현존은, 이윽고 땅의 아들과 딸들과 짝을 짓게 되었으며, 하느님들이 땅으로 내려와 필사자들과 배우자 관계를 이루었다는 전통적인 이야기들을 쉽게 기원시켰다. 그리하여 신화적(神話的)인 본성을 갖는 수많은 전설들이 생기게 되었지만, 반란 이후 시대의 사실들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나중에 그것들은 자기 조상들이 낫-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과의 이러한

접촉에 가담하였던 여러 민족들의 민간설화와 전승들 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67:4.4 (758.2) 반란에 가담한 그 참모진들은, 영적인 양식을 빼앗긴 채로, 결국에는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조성된 인간 종족들의 우상 숭배 대부분은 칼리가스티아 시대에 고귀하게 송앙을 받던 이 존재들에 대한 기억을 영속시키려는 열망에서 발생되었다.

67:4.5 (758.3) 100명의 그 참모진들이 유란시아에 왔을 때, 그들은 일시적으로 그들의 생각 조절자와 분리되어 있었다. 멜기세덱 접수자들이 도착함과 동시에, 충성된 그 개인성들(반을 제외한)은 예루셈으로 돌아갔고, 기다리고 있던 자기들의 조절자들과 재(再)연합하였다. 우리는 반역에 가담하였던 그 60명 참모진의 운명을 알지 못 한다; 그들의 조절자들은 아직도 예루셈에 머물고 있다. 루시퍼의 반란 전체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고 모든 가담자들의 운명이 정해질 때까지, 그들이 현재 있는 그대로 상태가 정지되어 있을 것이 틀림없다.

67:4.6 (758.4) 천사들 그리고 중도자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칼리가스티아 그리고 달리가스티아와 같은 뛰어나고

신뢰받는 통치자들이 타락하게 된다는—반역죄를 범하는—것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 죄에 빠진 그 존재들—그들은 고의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반역에 가담하지는 않았다—은 자신들의 상급자들에 의해서 잘못 인도되었고 믿었던 영도자들에게 속았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시적인 마음을 소유한 진화하는 필사자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67:4.7 (758.5)} 잘못 인도된 여러 행성들과 예루셈에서의 루시퍼 반란의 희생자들이었던 모든 인간들 거의 대부분과 초인간적 존재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오래 전부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아주 최근에 시작한, 사타니아 반란의 관련사들에 대한 판결을 최종적으로 완결 지을 때, 그러한 진지한 참회자들 모두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회복되고 우주 봉사의 어떤 위상들로 복직될 것이다.

제 5 장. 반란의 즉각적인 결과들

^{67:5.1 (758.6)} 그 반란이 선동된 이후로, 큰 혼란이 거의 50년 동안 달라마시아에 퍼져 있었다. 전 세계에 대한 완벽하고도 급진적인 재조직이 시도되었고; 진화 대신에

대변혁이 문화적 발전과 종족의 개선 방법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달라마시아 내부와 그 주변에 있던, 부분적으로 훈련된 우월한 체류자들 중에서, 문화적인 지위에 갑작스러운 진보가 나타났으나; 새롭고도 급진적인 이 방법들이 외곽에 있는 민족들에게 시도되었을 때, 형언할 수 없는 혼란과 인종적인 대혼란이 즉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그 당시의 어설프게 진화된 원시인들에 의해서, 자유는 재빨리 방종으로 변하고 말았다.

67:5.2 (758.7) 반란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동에 가담한 참모진들 전체는, 시기상조로 그들에게 가르쳐졌던 해방 정책의 결과로, 사방의 벽으로 몰려드는 반(半) 야만인들 무리의 약탈에 대항하여, 그 도시를 방어하는 일에 활기차게 가담하였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본부가 남부 지역의 물결 밑으로 가라앉기 수년 전에, 달라마시아의 시골 지역에 있던 오도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부족들이 화려한 그 도시에 반(半) 야만적인 급습을 감행하여, 분리된 참모진과 그들의 연관-동료들을 북쪽으로 몰아내었다.

67:5.3 (759.1) 개별적인 자유와 집단적인 해방에 대한 칼리가스티아의 관념에 따라서 인간 사회를 즉시 건설하고자 하였던 그의 계획은, 신속하게 그리고 거의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사회는 과거의 생물학적 차원으로 재빨리 후퇴하였고, 더욱 심한 투쟁이 온 사방에 퍼지기 시작하였으며, 칼리가스티아의 체제, 세계를 더욱 심각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던 이 대격변이 시작되었던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부터 출발하였다.

67:5.4 (759.2) 반란이 있는 후 162년이 지났을 때에는 조수(潮水)에 의한 파도가 달라마시아를 뒤덮었으며, 그 행성 본부는 바닷물 밑으로 가라앉았고, 그 화려한 시대들의 고귀한 문화에 대한 거의 모든 흔적들이 사라질 때까지 이 땅은 다시 솟아오르지 않았다.

67:5.5 (759.3) 세계 최초의 수도가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갔을 당시, 그곳에는 유란시아의 산각 종족들에서의 가장 낮은 유형들, 이미 아버지의 성전을, 빛과 불의 거짓 하느님, 녹에게 바치는 사당(祠堂)으로 개조했었던, 배교자들만 번식하고 있었다.

제 6 장. 반—흔들리지 않는 자

67:6.1 (759.4) 반을 따르는 자들은 일찍부터 인도 서부의 고지대로 물러났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낮은 지대의 혼잡한 종족들에 의한 공격을 피할 수 있었고, 산각 부족들이 태어나던 시대 직전에 바도난-사람인 그들의 초기 선조들이 한 때 무의식적으로 인류의 행복을 위해 모두 일했던 것처럼, 그들은 숨어 있는 그 장소로부터 세계를 부흥시킬 계획을 하였다.

67:6.2 (759.5) 멜기세덱 접수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반은 각각 4명으로 구성된 10개의 위원회에게 인간 관련사들에 대한 관리-행정을 맡겼으며, 그 집단들은 영주가 통치하였을 당시와 동일하였다. 거주하고 있던 선임 생명운반자들이, 40명으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일시적인 지도 권한을 맡았으며, 대기 상태에 있던 7년 동안 기능하였다. 39명의 충성된 참모진 요원들이 예루셈으로 돌아갔을 때, 아마돈-사람으로 구성된 비슷한 집단들이 이 책임을 맡게 되었다.

67:6.3 (759.6) 이들 아마돈-사람들은 아마돈이 소속된 144명의 충성된 안돈-사람들 집단에서 유래되었으며, 그의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집단 속에는 39명의 남자와 105명의 여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요원들

중에서 56명은 불멸성 지위에 있었고, 그들 모두는 (아마돈을 제외한) 충성된 참모진 요원들을 따라서 옮겨졌다. 고귀한 이 집단들 중에서 그 나머지는 그들의 일생이 끝날 때까지 반과 아마돈의 지도 아래에서 지구 위에 계속 남아 있었다. 그들은 그 반란 이후 시대의 긴 암흑기 기간 동안 내내 그 세계를 위한 지도 역할을 계속 유지하면서 증식되는 생물학적 발효제 역할을 하였다.

67:6.4 (759.7) 반은 아담이 도래할 때까지 유란시아에 남아 있었고, 그 행성에서 기능하는 초인간적 개인성들 전체의 명예 수석(首席)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와 아마돈의 생명은 멜기세덱들의 전문화된 생명 사명활동과 관련된 생명나무 기법에 의해서 150,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었다.

67:6.5 (759.8) 유란시아의 관련사들은, 수석 별자리 통치자, 놀라시아덱의 지고자 아버지에 의해서 비준된, 12명의 멜기세덱들인, 행성 접수자들로 구성된 협의회에 의해서 오랫동안 관리-운영되어 왔다. 멜기세덱 접수자들과 연관된 자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타락한 영주의 충성된 도움자들 중에서 1명, 거주하는

생명운반자들 2명, 견습생 신분으로 훈련받는 삼위일체화 아들 1명, 자원봉사자인 교사 아들 1명, 아발론의 찬란한 저녁별 1명(주기적으로), 세라핌천사들의 우두머리와 케루빔들의 우두머리, 이웃에 있는 두 행성들로부터 온 충고자들, 하급(下級) 천사 생명의 지도 사령관, 그리고 중도 창조체의 우두머리 지도자인 반. 그리하여 유란시아는 아담이 도래할 때까지 그렇게 관리-운영되었다. 용감하고 충성된 반이, 행성 접수자들의 협의회 대신에 유란시아의 관련사들을 관리-운영하도록 그토록 오랫동안 배치되었던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67:6.6 (760.1) 유란시아의 12인 멜기세덱 접수자들은 용맹스럽게 일하였다. 그들은 남아있는 문명들을 보존하였고, 그들의 행성 정책들은 반에 의해서 신실하게 수행되었다. 그 반란이 일어난 후로 1,000년이 지나기 전에, 그는 350개 이상의 진보된 집단들을 세계 전역으로 파견하였다. 이 문명 전초기지들은 주로 충성된 안돈-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산각 종족들 특히 청색 인종들이 약간 섞여 있었고 낯-사람들도 있었다.

67:6.7 (760.2) 반란에 의한 심각한 퇴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위에는 생물학적인 전망이 훌륭한 많은 혈통들이 있었다. 멜기세덱 접수자들의 감독 하에, 반과 아마돈은 인간 종족의 자연적인 진화를 육성시키는 일을 계속하였고, 물질아들과 딸을 유란시아로 파견하도록 보증하는 최종적인 성취에 도달할 때까지 사람의 육체적인 진화를 발전시켰다.

67:6.8 (760.3) 반과 아마돈은 아담과 이브가 도래한 직후까지 지구 위에 남아 있었다. 그로부터 수년 후에 그들은 예루셈으로 옮겨졌고, 반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자신의 조절자와 재(再)연합하였다. 반은 구성중인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의 계시되지 않은 운명과 파라다이스 성취를 향한 길고 긴 여정을 출발하기 위한 명령을 기다리면서 유란시아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

67:6.9 (760.4) 루시퍼가 유란시아에 있는 칼리가스티아를 지지한 후, 반이 에덴시아의 지고자에게 호소하였을 때, 반이 주장하는 모든 점들에 대하여 지지한다는 즉각적인 결정을 별자리 아버지들이 보냈던 사실을 밝혀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달되던 동안에 통신을 위한 행성

순환회로들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판결은 그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 오직 최근에 이르러서야 실재적인 이 판정이, 유란시아의 고립 이후로부터 줄곧 고립되어 있는 교대(交代) 에너지 전송자의 소유물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유란시아에 있는 중도자들의 조사 결과로 이루어진 이러한 발견이 없었다면, 이 결정의 발표는 유란시아가 별자리 순환회로들에게로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행성간 통신에서의 이 명백한 우연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은, 에너지 전송자들이 지능정보를 받아들이고 보낼 수는 있지만, 통신을 직접 시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67:6.10 (760.5)} 사타니아의 법률상 기록들에 적혀 있는 반에 대한 엄밀한 법적 해석 지위는, 에덴시아 아버지들에 의해 내려졌던 이 판정이 예루셈에 기록될 때까지는 실재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립되지 못하였다.

제 7 장. 죄의 먼 반향

^{67:7.1 (760.6)} 빛에 대한 창조체의 의지적이고 끊임없는 거부로 인한 개인적 (구심적) 결과들은, 필연적이고도 개별적이며, 오직 신(神)과 그리고 개인적 창조체에게만

관련된다. 그러한 혼을-파괴하는 사악한 불의의 수확은 사악하게 불의한 의지 창조체의 내적 결실이다.

67:7.2 (761.1) 그러나 죄의 외부적인 반향에서는 그렇지 않다: 죄가 포용되는 미(未)개인적 (원심적) 결과들은, 필연적이고도 집단적이며, 그러한 사건 들의 영향-범위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모든 창조체에게 관련된다.

67:7.3 (761.2) 행성 관리-행정 체제가 붕괴된 후 50,000년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의 관련사들은 너무나 질서 문란하고 퇴락하여, 칼리가스티아가 도착하기 350,000년 전 시대에 있었던 일반적인 진화 지위보다 나을 것이 없는 거의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어떤 특정한 면에서는 진보가 이루어진 상태였지만; 다른 방면들에서는 대부분의 기초가 유실되었다.

67:7.4 (761.3) 죄는 그 효과에서 순전히 지역적인 경우는 결코 없다. 우주들의 행정-관리적 구역은 유기체와 같다; 한 개인성의 곤경은 어느 정도까지는 전체와 공유되어야만 한다. 죄, 실체를 향한 개인의 태도를 이루는 것은 우주 가치들의 그 어떤 그리고 모든 관계된 차원에서 자체의 선천적인 부정적인 수확을 드러내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실수를 일으키는 생각이나 악한-행동 또는 죄로 가득한 계획에서 나오는 총 결과는 오직 실재행위의 차원에서만 체험된다. 우주 법칙에 대한 역행은, 마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영적인 체험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물리적 영역 안에서 치명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죄는, 오직 그것이 존재 전체의 태도일 때, 그것이 마음의 선택과 혼의 의지를 상징할 때에만, 개인성 생존에 대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잉태하고 있다.

^{67:7.5 (761.4)} 악과 죄는 그 결과들을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영역 안에 쏟아 붓는다. 그리고 때로는 우주 실체의 특정한 차원에서 영적 진보를 지연시키기까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존재의 죄도 다른 존재가 지닌 개인성 생존에서의 신성한 권한을 실현하는 것을 결코 빼앗지 않는다. 영원한 생존은 각 개별존재 자신의 혼에 의한 선택과 그 마음의 결정에 의해서만 위협받을 수 있다.

^{67:7.6 (761.5)} 유란시아에서의 죄는 생물학적 진화를 지체시킨 것은 거의 없었지만 한편, 아담의-유전성에서의 충만한 혜택을 필사 종족들에게 허용하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했다. 죄는 지적 발전과 도덕적 성장, 사회적 진보, 그리고

집단적 영적 달성을 엄청나게 지연시킨다.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을 알고자 선택하고 자신의 신성한 뜻을 진심에서 행하는 그 어떤 개별존재에 의한 최고의 영적 성취를 방해하지는 않는다.

67:7.7 (761.6) 칼리가스티아는 반란을 일으켰고, 아담과 이브는 임무를 불이행하였지만, 그 후에 유란시아에서 태어나는 어떤 필사자도 자기 개인적인 영적 체험에서 이러한 큰 실책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다. 칼리가스티아의 반란 이후에 유란시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어떤 의미에서 시간상의-대가를 치러왔다, 그러나 그러한 혼들의 미래의 복지가 결코 영원한-위태로움이 되지는 않았다. 어떤 개인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치명적 영적 결핍의 고통을 겪지는 않았다. 죄는, 그것이 비록 행정-관리적, 지능적, 그리고 사회적 권역에 멀리-퍼지는 반향을 미치지만, 도덕적인 죄책감이나 영적 귀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다.

67:7.8 (761.7) 우리는 그 어떤 대재앙들이 생기도록 버려두는 지혜를 헤아릴 수 없지만, 이들 지역적 동요들이 크게

우주에서 반영되는 것에서 보듯이, 우리는 이들 동요들이 유익하게 밖으로 완성되고 있음을 항상 식별할 수 있다.

제 8 장. 반란에서의 인간 영웅

67:8.1 (761.8) 루시퍼 반란은 사타니아에 있는 다양한 세계들에서 용감한 많은 존재들에 의해서 저항을 받았지만; 구원자별의 기록들은 아마돈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선동의 물결을 멋지게 물리쳤다는 점에서 그리고 반을 향해 변함없이 헌신하였다는 점에서—그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미가엘의 최극위에 대한 충성에 있어서 변하지 않고 같이 지켜나갔다—전체 체계 중에서도 그를 두드러진 인물로 꼽았다.

67:8.2 (762.1) 이러한 중대한 활동행위들이 일어날 때, 나는 에덴시아에 머물고 있었으며, 안돈의-종족이었고 기원적이며 실험적인 혈통에서 태어난, 한 때 반(半)야만인이었던 이 사람이 날마다 놀라울 정도로 확고부동하였고 탁월하게 헌신적이었으며 더없이 훌륭하게 충성하였다는 구원자별의 방송들을 살살이 읽으면서 내가 체험하였던 흥분을, 아직도 의식하고 있다.

67:8.3 (762.2) 7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 사타니아의 반란과 관련하여, 에덴시아로부터 구원자별을 거쳐 심지어는 유버사에 이르기까지, 하급(下級)의 모든 천상(天上) 생명이 처음으로 질문한 것은, "유란시아의 아마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굳게 서있습니까?"라는 것이었다.

67:8.4 (762.3) 만약 루시퍼의 반란이 그 지역 체계와 그 타락한 세계들을 방해하였다면, 이 아들과 그의 잘못 인도된 동반자들의 실패가 놀라시아덱 별자리의 진보를 일시적으로 훼손한 것이 사실이었다면, 그의 불충한 상급자들에 의해서 가해진 그토록 극심하고도 불리한 압력에 직면한 우주 경영과 관리-행정의 높은 개념들을 향하여 확고부동한 자세를 견지한 143명의 굳게 결심한 그의 연관-동료 무리들과 자연적으로 태어난 이 한 사람이 보여주었던 용기를 복돋우는 행위를 멀리까지 퍼져 나가게 한 그 소식의 효과가 얼마나 컸겠는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루시퍼 반란으로 인한 모든 악과 불행의 총계보다도, 네바돈 우주와 오르본톤 초우주 안에서 훨씬 더 훌륭하게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67:8.5 (762.4)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파라다이스에 있는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을 동원하기 위한, 그리고 상승 진보하는
필사자들의 평범한 육체—조금도 동요되지 않는 아마돈과
같은 바로 그러한 필사자들—로부터 미래 세계의 신비한
봉사자들로 이루어진 이 광대한 집단들을 모집하기 위한
아버지의 우주적 계획의 지혜를 최고로 장엄하게 빛내고
있으며 아름답게 감동을 주고 있다.

67:8.6 (762.5)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서 제시되었음]

제 68 편 문명의 여명

68:0.1 (763.1) 이것은, 동물적 실존보다 거의 나을 것이 없는
지위로부터, 중간을 이루는 시대를 거쳐,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류의 고등 종족들 가운데에서 실제적 문명이
진화되었던 후대에 이르기까지의, 인간 종족이 앞으로
나아갔던 길고 긴 투쟁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이다.

68:0.2 (763.2) 문명은 종족마다 획득되는 것이고; 생물학적으로
주어지는 재능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손들은
문화적 환경 속에 적응해야 하며, 동시에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은 새롭게 그 교육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다.
문명의 우월한 본질특성들은—과학적, 철학적,

종교적—직접적인 상속에 의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이 문화적 성취들은 오직 사회적인 유산에 대한 깨우친 보존에 의해서만 유지된다.

68:0.3 (763.3) 협동적 계층의 사회적인 진화는 달라마시아의 선생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인류는 300,000년 동안 집단 활동에 대한 관념 속에서 양육되었다. 모든 인종들 중에서 청색 인종들은 이러한 초기의 가르침들에 의해서 가장 많은 유익을 얻었으며, 적색 인종은 다소 얻었고, 흑색 인종이 전체 중에서 가장 적게 얻었다. 최근에 이르러서, 황색 인종과 백색 인종들은 유란시아에서 가장 진보된 사회적 발전을 나타내었다.

제 1 장. 보호적 사회화(社會化)

68:1.1 (763.4) 사람들은 서로 가깝게 접근하였을 때 종종 서로를 닮아가기도 하지만, 원시인에게는 친근함을 느끼는 마음과, 자기 이웃들에게 사회적으로 접촉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흘러넘치지 못하였다. 그보다는 오히려, 초기 종족들은 슬픈 체험을 겪음으로서 “연합 안에는 강한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으며; 유란시아에서 사람의 형제신분의 즉각적 실현에서 길을

막고 서있는 것은, 자연적인 형제적으로 끌어당김의 이러한 모자람이다.

68:1.2 (763.5) 일찍부터 관계적-연합은 살아남기 위한 대가가 되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갑작스러운 습격이 닥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보복할 수 있는 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어떤 부족 표식을 간직하지 않는 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심지어는 카인의 시대에도,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어떤 표지를 갖지 않고 멀리 여행하는 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문명은 폭력에 의한 죽음에 대처하는 사람의 대비책이 되었으며, 반면에 그 대가는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법적 요구들에 복종함으로써 갚아야 한다.

68:1.3 (763.6) 그리하여 원시 사회는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눈다는 개념 위에 그리고 관계적-연합하여 안전을 증진시킨다는 개념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 인간 사회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의 결과로 그리고 마지못해서 하는 협동에 의해서 오랜 세월의 순환 과정을 거쳐 진화되어 왔다.

68:1.4 (763.7) 원시 인간 존재들은, 단순한 개인 단위들의 집합보다는 집단이 훨씬 더 훌륭하고 강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배우게 되었다. 100명의 남자들이 연합하여 힘을 합쳐 일하면 거대한 돌도 움직일 수 있다; 잘 훈련된 다수의 평화 수호자들은 흥분한 군중을 자제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사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개개인들의 단순한 관계적-연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능적인 협동자들의 조직을 이룬 결과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협동은 사람의 자연적인 특색이 아니며; 처음에는 두려움을 통하여 협동하는 것을 배웠고, 나중에는 시간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장차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들을 방지함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유익한 것임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었다.

68:1.5 (764.1) 일찍부터 스스로를 원시적 형태의 사회로 조직화하였던 그 민족들은 자신들의 이웃에 대항하여 방어하는 일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도전에 있어서도 더욱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었고, 그리하여 문명은 여러 번의 퇴보에도 불구하고 유란시아에서 꾸준히 진보되었다. 그리고 사람의 수많은 실책들이 인간 문명을 전혀 정지시키거나

파괴시키지 못한 것은 오로지 관계적-연합을 통하여 유지된 가치 있는 것들이 더욱 증진되었기 때문이다.

68:1.6 (764.2) 현대 문명사회가 아주 최근의 현상이라는 사실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아프리카의 부시먼 인종 그리고 피그미 인종과 같은 원시적 사회가 지금-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는 현상으로부터 잘 알 수 있다. 진보가 늦은 이 민족들 속에서, 초기의 집단적 호전성과 개인적인 의심 그리고 모든 원시 종족들의 전반적인 특색이었던 매우 반사회적(反社會的)인 다른 본성들 등이 발견되기도 한다. 사회성이 없는 고대 민족들 중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남아 있는 이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개별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 진보를 이루는 보다 유력하고 힘센 조직과 관계적-연합회들과는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임을 역력하게 증언하고 있다. 매 40내지 50마일마다 서로 다른 사투리를 구사하며 진보가 늦고 의심이 많은 이 반사회적 종족들은, 행성영주의 유형 참모진의 병합된 교육과 인종들을 증진시키는 아담의-후예 집단들의 후기 활동들이 없었다면 너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인지를 예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68:1.7 (764.3)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현대의 표현은 무지한 망상, 한 때의 허구였던 “황금기”를 실체라고 믿는 것이다. 황금기에 대한 전설의 유일한 근거는 달라마시아와 에덴이라는 역사적 사실뿐이다. 그러나 이런 향상된 그 사회들은 유토피아 꿈들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었다.

제 2 장. 사회적 진보에서의 요소들

68:2.1 (764.4) 문명화된 사회는, 사람이 자신의 고립에 대한 혐오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노력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것은 상호적인 애정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현재의 어떤 원시적 집단들이 보여주는 난폭한 태도는 초기 부족들이 어떤 상태를 겪었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다. 그렇지만 문명 세계 속의 개별존재들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면서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문명 그 자체가 분투와 투쟁이라는 모순된 덩어리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침체 상태의 따분하고 단조로운 것이 아니라 전력을 다하는 분투임을 입증하고 있다.

68:2.2 (764.5) 지성 차원은 문화 진보의 정도에 상당히 기여하지만, 사회는 본질적으로 각 개별존재의

생활양식에서 위험 요소를 줄여주도록 고안되었으므로, 삶에 있어서 고통을 줄이고 기쁨 요소를 증대시키는 속도에 따라 그만큼 진보해 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체적인 사회 본체는, 그 목표가 자아-유지인가 아니면 자아-충족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운명의 목표—생존 또는 소멸—를 향하여 서서히 나아간다. 자아-유지는 사회를 기원시키며 반면에, 지나친 자아-충족은 문명을 파괴한다.

68:2.3 (764.6) 사회는 자아-영속, 자아-유지 그리고 자아-충족에 관련되지만, 그러나 인간의 자아-실현은 대다수 문화적 집단들의 당장의 목표가 될 만한 가치가 있다.

68:2.4 (765.1) 자연적인 사람에게 있는 무리 짓는 본능은, 유란시아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회적 조직의 발전을 이룩할 정도로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 비록 타고난 집단적 성향이 인간 사회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성 대부분은 습득되는 것이다. 인간 존재들이 초기에 관계적-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두 가지 요소는 양식에 대한 열망과 성(性)적인 사랑이었다; 이러한 본능적인 충동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동물 세계와 공유하도록 강요하였다.

인간 존재들로 하여금 억지로 함께 있도록 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두 가지 다른 감정들은 공허함과 두려움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더욱 엄밀하게는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심하였다.

68:2.5 (765.2) 역사는 사람의 오랫동안의 양식을 위한 투쟁에 대한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시인들은 자기가 배고플 때에만 생각하였다; 음식을 저장하는 것은 최초의 자아-부정, 자아-단련이었다. 사회가 커짐에 따라, 양식에 대한 열망만이 상호 관계적-연합의 유일한 자극이던 시대는 지나갔다. 수많은 다른 열망들, 다양한 필요에 대한 실현들, 모든 것이 인류의 연합을 더욱 긴밀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인류가 필요로 한다고 가정되는 것보다 너무 지나치게 커져서 오히려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20세기의 서구 문명 세계는, 인간들의 지나치게 배가된 욕구와 열망들 그리고 사치로 인한 너무 지나친 부담에 짓눌려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 현대 사회는 멀리까지 미치는 상호-연관과 매우 복잡한 상호 의존이라는 가장 위험한 위상들 중의 하나인 긴장 상태를 견디어 내고 있는 중이다.

68:2.6 (765.3) 굶주림과 공허감 그리고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그들의 사회적인 곤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계속되었지만, 성(性)적 충족은 과도가이었고 가끔 일어나는 것이었다. 성적인 충동 그 자체만이, 원시적인 남자와 여자들로 하여금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무거운 짐을 지도록 만든 것은 아니었다. 초기의 가정은 빈번한 성적 충족이 박탈되었을 때 가지는 남성들의 성적 불안함에서 그리고 인간 여성의 헌신적인 모성애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인간 여성은 모든 남성 고등동물들과 어느 정도 분담하는 생활을 하였다. 어떤 도움도 없는 어린 아기의 현존은, 남성과 여성의 활동에 있어서 일찍부터 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여인은 정착된 주거지를 유지하면서 그곳에서 땅을 일굴 수 있었다. 그리고 초기 시대부터, 여자가 사는 곳이 항상 가정으로 간주되어 왔다.

68:2.7 (765.4) 그리하여 여인은 일찍부터, 잠깐 동안에 지나가는 성(性)적 열정 때문이라기보다는 음식 필요성 때문에, 진화하는 사회 구조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여자는 자아-유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동반자가 되었다. 여인은 양식을 제공하는 자였고, 짐을 나르는 짐승이었으며, 난폭한 분노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심한

학대를 견디려고 하는 동행자였고, 바람직한 이 모든 특색들 외에도, 여인은 언제까지나-제공하는 성적 충족의 수단이었다.

68:2.8 (765.5) **문명사회** 속에서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가치 있는 것들 거의 대부분은 가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가정은 평화로운 집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성공한 것이었는데, 남성과 여성은 자신들의 반목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를 배우면서 동시에 자기 자녀들에게 평화를 추구하도록 가르쳤다.

68:2.9 (765.6) **진화** 안에서, 결혼의 기능은 단순히 개인적 행복의 실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종족 보존을 위한 보험이었다; 자아-유지와 자아-영속은 가정의 실제 목적이었다. 자아-충족은 우발적인 것으로서, 성(性)적 관계적-연합을 보장하는 장려 수단으로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자연본성은 생존을 요구하지만, 문명의 기법은 결혼의 즐거움과 가정생활의 만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

68:2.10 (765.7) 만약 허영심이 자부심, 열정 그리고 명예를 덮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면, 이는 그러한 감성들이 그들 앞에서

뿔낼 청중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 성향들이 인간 관계적-연합들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그들이 사람들을 함께 하도록 붙잡아 주는 지를 분간해 볼 수도 있다. 허영심은 자신의 다른 감정들, 그리고 자신들을 드러내 보이고 스스로 만족시킬 사회적 경기장이 필요하다는 충동들과 이내 연관된다. 감정들의 이 집단이 예술, 예식 그리고 각종 형태의 운동경기와 경쟁의 초기 시작에서의 기원이 되었다.

^{68:2.11 (766.1)} 허영심은 사회가 탄생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계시들이 있을 시기에, 허영심 많은 세대의 어긋난 투쟁들은 고도로 특화된 문명의 복잡한 구조 전체를 궁지에 빠뜨리고 침몰시키려고 위협하고 있다. 즐거움-요구는 오래 전부터 배고픔-요구를 대치시켜 왔다; 자아-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사회적 목표들은 자아-충족을 위한 저급하고 위협적인 형태들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다. 자아-유지는 사회를 이룩하고 있지만; 고삐 풀린 자아-충족은 어김없이 문명을 파괴한다.

제 3 장. 귀신 두려움의 사회화 영향

68:3.1 (766.2) 원시적인 욕망들은 기원적 사회를 형성시켰다, 그러나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를 묶게 하였고 그 실존에 관한 어떤 인간 이외의 양상을 전해주었다. 일반적인 두려움은 생리적으로 기원된 것인데 즉: 육체적인 고통, 만족되지 못한 열망, 또는 이 세상의 어떤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의 새롭고도 심한 종류의 공포였다.

68:3.2 (766.3) 인간 사회의 진화에 있어서 단일한 요소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마 귀신에 대한 꿈이었을 것이다. 비록 대부분의 꿈들이 원시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크게 혼란시켰을 지라도, 귀신에 대한 꿈은 초기 인류를 실재적으로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었고, 미신적으로 꿈을 꾸는 이들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막연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허구적인 위험들에 대항하여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이고도 진지한 관계적-연합 속에서 서로 손을 잡게 하였다. 귀신에 대한 꿈은 마음을 소유한 인간 유형과 동물 사이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초기 현상들 중의 하나였다. 동물들은 죽음 이후의 생존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러한 귀신의 요소를 제외한다면, 모든 사회는 근본적인 필요성들과 기본적인 생물학적 충동들 위에 세워졌다. 그러나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문명에 하나의 새로운 요소, 각 개별존재의 기본적인 필요들로부터 밖으로 뻗어 나가고 멀리까지 퍼지는 그리고 그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떠오르는 하나의 두려움을 제공하였다. 죽은 시체로부터 떠난 영들에 대한 무서움은 하나의 새롭고도 놀라운 형태의 두려움, 무시무시하고 강렬한 공포심이 노출되도록 하였는데, 그것은 초기 시대의 산만한 사회 계층이 더욱 속속들이 단련 하도록 기여하였고 고대의 원시 집단들을 보다 잘 통제하도록 기여하였다. 이러한 어리석은 미신은, 그 중의 일부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비(非)존재적이고 초자연적인 미신적 두려움을 통하여, 후대에 “지혜의 근원인 주님께 대한 두려움”을 발견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었다. 진화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들은, 계시에 의하여 영감을 받는 신(神)에 대한 외경심으로 대체되도록 되어 있다. 귀신을 두려워한 초기의 예배종파는 강력한 사회적 속박이 되었고, 그 후로

먼 훗날까지 인류는 영성(靈性) 달성을 위해 어느 정도 분투해왔다.

68:3.4 (766.5) 굶주림과 사랑이 사람들로 하여금 뭉치도록 이끌었고; 허영심과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그들을 함께 묶어주었다. 그러나 평화를 조장하는 계시들의 영향이 없다면, 이 감정들 자체만으로는, 인간의 상호-연관에서 생기는 의심과 갈등으로 인한 긴장감을 감당할 수 없다. 초인간 근원으로부터 도움이 없다면 사회의 긴장감은 어떤 한계에 도달할 때 폭발하게 되며, 사회를 동원시키는 바로 이들 영향력—굶주림, 사랑, 허영심, 그리고 두려움—은 인류가 전쟁과 학살로 뛰어들도록 도모한다.

68:3.5 (766.6) 인간 종족의 평화 성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자질이 아니며; 그것은 계시된 종교의 가르침으로부터, 진보적인 종족들의 누적된 체험으로부터 유래되지만, 특별히 평화의 영주인 예수의 가르침으로부터 유래된다.

제 4 장. 사회관례의 진화

68:4.1 (767.1) 모든 현대 사회적 관례들은 너희의 야만적인 조상들의 원시적인 관습들이 진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오늘날의 풍습들은 과거의 관습들이 변화되고 확대된

것이다. 습관은 개별존재적인 것이고, 관습은 집단적인 것이다; 집단적인 관습들은 풍속 또는 부족적 전통들—큰 덩어리의 풍습들—로 발전된다. 지금-현재 인간 사회의 관례들 전체는 이러한 초기의 시초들로부터 초라하게 기원되었다.

68:4.2 (767.2) 사회관례가 집단적인 삶을 대규모적인 생활에 맞추기 위한 노력에서 기원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회관례는 사람의 최초의 사회적 제도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족적인 반응들 전체는 고통과 굴욕을 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기쁨과 힘을 누리기 위하여 탐구하는 노력에서 발생되었다. 언어의 기원과 마찬가지로, 풍속은 항상 무의식적이고 무계획적으로 기원되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비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다.

68:4.3 (767.3)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존재를 상상하도록 강요하였고, 그리하여 종교와 윤리라는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이 형성되도록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이것들은 다음에 침범할 수 없는 사회관례와 관습들로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보존되었다.

초기에 많은 것을 제정하고 결정화를 이루게 했던 한 가지 사회관례는, 죽은 자는 그 사람이 살았고 죽었던 여정에 대하여 질투한다는 믿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육신으로 살 때 자랑이 되었던 삶의 규칙들을 감히 가볍게 멸시하여 다루면서, 살아가는 필사자에게 무시무시한 형벌을 가하기 위하여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황색 인종들이 자기들의 조상을 존경하는 것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나중에 발달한 원시종교는 사회관례를 안정시킴으로써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강화시켰지만, 진보된 문명은 두려움에 속박된 상태와 미신의 노예 상태로부터 인류를 점점 더 해방시켜 왔다.

68:4.4 (767.4)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달라마시아 선생들의 가르침이 있기 전에는, 옛날 사람들은 사회관례의 예식에서 어떤 도움도 없는 희생자로 갇혀 있었다; 원시 야만인은 끊임없는 예식에 둘러싸여 있었다. 아침에 깨어나는 시간으로부터 밤에 자기 동굴로 돌아가 잠이 드는 순간까지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꼭 그렇게—자기 부족의 풍속에 일치되도록—해야만 하였다. 그는 풍습의 폭정에 대하여 노예였다; 그의 일생은

자유롭거나 자발적이거나 독창적인 그 어떤 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보다 높은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실존을 향한 자연스러운 진보가 없었다.

68:4.5 (767.5) 초기의 사람은 관습에 의해서 꼼짝도 못하게 붙들려 있었다; 야만인은 관례에 진실 그대로 노예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방법의 사고(思考)와 개선된 방법의 생활을 시도하려는 변화된 유형의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이따금씩 생겨나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시인의 타성은, 너무 빠르게 진보하는 문명의 파괴적인 잘못된 조절로 너무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을 반대하는 생물학적 안전 제동장치를 구성하고 있다.

68:4.6 (767.6) 그러나 이 관습들은 순전히 악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들의 진화는 계속되어야만 하였다. 급진적인 혁명에 의해서 그것들을 일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문명의 연속성에 있어서 거의 파멸적인 것이나 다름없다. 관습은 문명을 함께 묶어주는 연속적인 생명 역할을 해 왔다. 인류 역사의 경로는 폐기되는 관습들과 진부한 사회적 실천 관행들 중에서 남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보다 향상되고 더욱 알맞은 관습들을 제외시켜

지키지 않고, 무작정 자신의 사회관례를 내버리는 문명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존속되지 못하였다.

68:4.7 (767.7) 어느 사회의 생존은 주로 그 사회관례의 진보적인 진화에 달려있다. 진화적인 관습의 진보는 실험에 대한 욕구에서 발생된다; 새로운 관념들이 제시된다.—경쟁이 일어난다. 진보하는 문명은 진보적인 관념을 포용하고, 지속된다; 시간과 환경은 결국 보다 알맞은 집단이 살아남도록 선택한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 사회의 조직 속에서 각각의 분리되고 고립된 변화가 더 나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유란시아 문명이 오랫동안 진보적인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퇴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 5 장. 토지 기법—유지관리 기술들

68:5.1 (768.1) 땅은 사회가 공연되는 무대이고, 사람은 배우들이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토지 상황에 순응시켜야만 한다. 사회관례의 진화는 항상 땅과 사람의 비율에 의존된다. 그것을 식별하는 것은 힘들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사람의 토지 기법, 즉 유지관리 기술과 사람의 삶의 표준을 더하면 풍속의 총합, 즉 사회관례이다. 그리고

일생에 요구되는 것에 대한 사람이 조절한 것의 합계는, 사람의 문화적 문명이다.

68:5.2 (768.2) 가장 초기의 인간 문화는 동반구(東半球)에 있는 강들을 따라서 이루어졌으며, 전진하는 문명의 행진에는 네 개의 큰 단계가 있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68:5.3 (768.3) 1. 채집 단계. 양식에 대한 숙박과 굶주림은 최초의 산업 조직 형태, 원시적인 양식-채집 작업을 형성시켰다. 어떤 때에는 땅에 떨어진 양식을 찾는 그러한 굶주린 자들의 행렬이 10마일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것은 원시적인 방랑기의 문화였으며 현재 아프리카의 부시먼 종족들이 따르는 삶의 형태이다.

68:5.4 (768.4) 2. 수렵 단계. 무기를 만드는 도구들이 발명됨에 따라서 사람은 사냥꾼이 되었고, 그리하여 양식에 노예 된 상태에서 상당히 벗어나게 되었다. 위험한 전투에서 손을 심하게 다치자, 생각이 깊은 안돈-사람은, 팔 대신에 긴 막대기를 사용하고 그 끝에는 손 대신에 단단한 부싯돌 조각을 힘줄로 붙들어 매는 관념을 다시 발견하였다. 여러 부족들이 이와 비슷한 방법들을 독자적으로 발견하였고,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갖는 망치 모양의 연장들은 인간

문명에서의 위대한 전진 단계 중의 하나를 나타낸다. 오늘날에도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떤 원주민들은 이 단계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

68:5.5 (768.5) 청색 인종들은 숙련된 사냥꾼과 덫을 놓는 자가 되었고, 강에 담을 만들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며, 남는 것은 겨울 양식을 위하여 건조시키기도 하였다. 여러 가지 형태의 교묘한 함정과 덫이 사냥감을 잡는 데 사용되었지만, 좀 더 원시 종족일수록 좀 더 큰 동물은 사냥하지 않았다.

68:5.6 (768.6) 3. 목축 단계. 이러한 문명 현상은 동물들을 길들임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아랍인과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아주 최근까지도 목축을 하는 민족에 속하고 있다.

68:5.7 (768.7) 목축 생활로 말미암아 양식에 노예 되었던 상태로부터 구원을 점점 잘 제공하였고, 사람들은 자기 자산의 증식, 자신이 소유한 짐승 떼의 증식에 의존하여 사는 방법을 배웠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문화와 진보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게 되었다.

목축 이전(以前)의 사회는 이성간의 협동의 사회였지만, 동물 사육이 확산되면서 여인들은 사회적 노예 상태의 깊은 곳에 밀어 넣었다. 그 이전 시대에는, 동물성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남자들의 의무였고, 식물성 식품을 제공하는 것은 여자들의 일이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신의 실존에서의 목축 시대로 들어가게 되자, 여자들의 존엄성은 엄청나게 떨어졌다. 여자는 생활에 필요한 야채를 가꾸기 위하여 여전히 수고를 해야만 하였지만, 남자는 풍부한 동물성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 가축 떼를 돌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렇게 해서 남자가 여자와 관계없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이 되어갔다; 목축 시대 전체를 통하여, 여자의 지위는 점점 더 낮아졌다. 이 시대가 끝나가면서, 여자가 인간 동물이나 다름없는 지위가 되었고, 일하는 것과 인간 자손을 낳는 일이 맡겨졌으며, 가축 떼가 노동을 하고 새끼를 낳도록 기대된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목축 시대의 남자들은 자기 가축들을 무척 소중하게 다루었다; 남자들이 자기 아내에 대하여 이보다 더 깊은 애정을 발전시킬 수 없었으니, 모든 것이 더욱 딱한 일이었다.

68:5.9 (769.1) 4. 경작 단계. 이 시대는 식물들을 길들임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가장 높은 유형의 물질문명에 해당된다. 칼리가스티아와 아담 둘 모두 원예 기술과 경작 기술을 가르치려고 노력하였다. 아담과 이브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채소를 가꾸는 사람이었으며, 채소를 가꾸는 일은 이 시대에 가장 진보된 문화였다. 식물들의 성장은 모든 인류 종족들을 고상하게 만드는 영향을 끼친다.

68:5.10 (769.2) 농업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땅에 대한 사람의 비율은 배가되었다. 그것은 그 전에 있었던 문화 단계의 목축 생활과 합쳐질 수 있었다. 세 개의 단계가 겹쳐졌을 때, 남자들은 사냥을 하였고 여자들은 땅을 경작하였다.

68:5.11 (769.3) 목축을 하는 자들과 땅을 경작하는 자들 사이에는 항상 마찰이 있었다. 사냥꾼과 목축을 하는 자들은 투쟁적이고 호전적이었다; 경작을 하는 자들은 평화를 더욱 사랑하는 태도를 가졌다. 동물들과의 관계적-연합은 투쟁과 무력을 촉구하였고; 식물들과의 관계적-연합은 인내와 침착성과 평화를 서서히 가르쳐 주었다. 농업과 산업주의는 평화로운 활동들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사회적 활동에서 그러하듯이, 두 산업들 모두의 약점은 자극과 모험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68:5.12 (769.4) 인간 사회는 사냥을 하는 단계로부터 목축의 단계를 거쳐 농업을 하는 사유지 단계로 진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진보적인 문명의 각 단계마다 떠돌이 생활은 점점 더 감소되었고; 사람들은 점점 더 가정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68:5.13 (769.5) 그리고 이제는 산업이 농업을 보충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농업을 하지 않는 시민 계급들이 점점 더 도시화를 이루었고 숫자가 점점 더 배가되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사회적 발전이라도 반드시 견고한 농업적 기반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그 영도자들이 깨닫지 못할 때에는 산업 시대가 계속될 희망이 사라지고 만다.

제 6 장. 문화의 진화

68:6.1 (769.6) 사람은 흙으로부터 창조된 존재, 자연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이다; 땅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하여도, 마침내는 확실히 실패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글자 그대로도 틀림없는 말이다. 사람이 당하였던 그리고 당하고 있는 땅에 대한 기본적인 투쟁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원시 인간 존재들이 이룩하였던 최초의 사회적 관계적-연합은 이러한 땅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땅에 대한 사람의 비율은 모든 사회적 문명의 기초가 된다.

68:6.2 (769.7) 사람의 지성은, 과학과 기술에 의하여, 땅의 소산(所産)을 증대시켰으며; 동시에 자손의 자연적인 증가는 통제되었고, 그리하여 문화적 문명 건설에 재료와 여가를 제공하였다.

68:6.3 (769.8) 인간 사회는, 인구가 토지 경작 기술에 따라서 정비례하고, 또 반대로 주어진 생활수준에 반비례하도록 변하여야만 한다고 선언하는 법칙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이러한 초기 시대 전체 기간 동안, 사람들과 땅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공급과 수요 법칙은, 심지어 오늘날보다도 더욱 심하게, 그 두 가지의 예상 가치를 결정하였다. 풍부한 땅—점령되지 않은 지역—이 있던 시대 동안에는, 사람들에 대한 필요성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생명에 대한 가치는 더욱 증대되었다;

그리하여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었다. 땅이 부족하고 그에 연관되어 인구가 과밀하게 된 기간 동안에는, 인간의 생명이 비교적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전쟁과 기근 그리고 역병이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다.

68:6.4 (770.1) 땅의 소산이 줄어들거나 인구가 증가될 때, 필연적으로 투쟁이 재연되고; 인간 자연본성의 가장 나쁜 특색들이 표면으로 드러난다. 땅의 소산의 증대와 기계적인 기술들의 확장 그리고 인구의 감소 등은 모두 인간 자연본성의 더 좋은 면이 개발되도록 육성시키는 경향이 있다.

68:6.5 (770.2) 변방 개척자 사회는 인간성에서의 특별한 훈련이 필요 없는 그러한 면을 발달시킨다; 순수 예술과 참된 과학적 진보는, 영적인 문화와 함께, 땅-사람의 비율보다 약간 낮은 상태에 있는 농업과 산업 인구에 의해 지원될 때, 보다 큰 생활 중심지에서 가장 잘 번성해 왔다. 도시들은 선한 쪽이든 악한 쪽이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힘을 항상 몇 배로 만든다.

68:6.6 (770.3) 가족의 크기는 생활 기준에 의해서 늘 영향을 받아왔다. 생활 기준이 높아질수록, 가족의 크기는 고정된 상태 또는 점진적으로 소멸될 때까지 점점 줄어든다.

68:6.7 (770.4) 여러 시대를 지나는 동안 내내, 생활 기준은 단순한 양과 대조해서, 살아남는 인구의 본질특성을 결정해 왔다. 생활 기준의 지역적인 등급은 새로운 사회적 특권계급, 새로운 사회관례가 태동되도록 한다. 생활 기준이 너무 복잡하게 되거나 너무 심하게 호화스럽게 되면, 그들은 급속도로 자멸한다. 특권계급은 조밀한 인구에 의해서 야기되는 날카로운 경쟁의 심한 사회적 압력에 의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68:6.8 (770.5) 초기 종족들은 인구를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실천 관행들에게 종종 의존하곤 하였는데, 모든 원시적 부족들은 불구자와 병약한 아이들을 죽였다. 여자아이들은 아내로 구매되기 전에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이기도 하였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방법은 아이를 버리는 것이었다. 둘 이상이 동시에 태어나는 것은 마술에 의한 결과 또는 부정(不貞)을 탔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쌍둥이의 아버지는 대개 그 중의 하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같은 성(性)의 쌍둥이는 살려주었다. 쌍둥이에 대한 이러한 금기(禁忌)가 한 때 보편적으로 퍼지기도 하였지만, 안돈-사람들의 사회관례는 그러한 것들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민족들은 쌍둥이를 항상 좋은 행운의 징조라고 여겼다.

68:6.9 (770.6) 많은 종족들은 낙태 기법을 연구하였고 이러한 실천 관행으로 말미암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금기로 여기는 것이 매우 일반화 되게 되었다. 미혼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이를 죽이도록 하는 것이 오랫동안 관습으로 지켜졌지만, 보다 문명화된 집단들 가운데에서는 이 사생아들이 그 소녀 어머니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많은 원시 씨족(氏族)들이 낙태와 유아 살해 두 가지 실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멸절되었다. 그러나 사회관례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일단 젖을 먹인 후에는 아이들이 거의 살해되지 않았다.-어머니 애정은 그토록 매우 강하다.

68:6.10 (770.7) 심지어는 20세기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원시적 인구 통제 방법이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둘 또는 셋 이상의 자녀를 기르기를 거부하는 부족이 있다. 최근에도, 다섯 번째로 태어나는 아이마다 먹어버리는 야만적인 부족이 하나 있었다.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어떤 부족들은 아직도 특정한 불길한 날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전부 죽이고 있으며, 전체 신생아들 중에서 약 25%가 죽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68:6.11 (770.8) 세계적인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인구 과밀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전쟁이 줄어들고 과학에 의해서 인간의 질병이 점점 더 통제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그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러한 때가 이르면, 세계 지도층의 지혜에는 엄청난 시험이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유란시아의 통치자들이, 표준 이상(以上)의 사람들과 엄청나게 증가하는 표준 이하의 집단들의 양극단 대신에 평균적인 또는 안정된 인간이 증가되는 것을 육성할 수 있는 통찰력과 용기를 가질 것인가? 보통 사람이 육성되어야만 한다; 보통 사람은 문명의 중심이고, 인종의 돌연변이 천재들이 탄생되는 원천이다. 보통 이하의 사람들은 사회의 통제 밑에 있어야만 한다; 그들은 상위 유형의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노예처지가 되고 속박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이, 동물 차원 이상의 지능이 필요하지만 비교적 낮은-등급의 수요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하위 차원의 산업을 관리-운영하는 데 요구되는 인구 이상으로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68:6.12 (771.1) [언젠가 유란시아에 머물렀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69 편 원시 인간 제도

69:0.1 (772.1) 감정적으로는, 사람은 해학(諧謔)과 예술 그리고 종교를 느껴서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면에서 그의 동물 조상들을 능가한다. 사회적으로는, 사람은 연장을 만드는 자이며, 의사 전달자이며, 제도 구축자라는 것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낸다.

69:0.2 (772.2) 인간 존재들이 사회 집단들을 오랫동안 유지하였을 때, 그러한 집합체는 반드시, 마침내 제도화를 이룩하는 특정한 활동 경향들을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람이 세운 제도들의 대부분은, 노동이 절약됨과 동시에 집단적 안전을 증진시키는 어떤 것에 공헌하는 것을 입증해 왔다.

69:0.3 (772.3) 문명화된 사람은 자신의 확립된 제도들이 갖는 성격과 안정성 그리고 연속성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지만, 인간적 제도들 전체는 금기들에 의해서 보존되고 종교에 의해서 위엄을 갖추어 가면서 축적되어진 과거의 사회관례들에 불과하다. 그러한 유산(遺産)들은 전통이 되기 시작하고 전통은 궁극적으로 관행으로 변형된다.

제 1 장. 기본적인 인간 제도

69:1.1 (772.4) 모든 인간적 제도들이 과거 또는 현재의 어떤 사회적 필요성을 만족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과도한 발달은 반드시 개별존재의 우수성이 낙후되는 결과를 낳게 되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성은 빛을 잃고 독창력은 퇴보된다. 사람은 발전하는 문명이 산출하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제도들을 통제해야만 한다.

69:1.2 (772.5) 인간의 제도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 된다:

69:1.3 (772.6) 1. 자아-유지의 제도들. 이 제도들에는 양식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발생하는 실천 관행들 그리고 그에 연관된

자아-보존의 본능들이 들어 있다. 그것들은 산업, 재산, 이익을 위한 전쟁, 그리고 사회의 모든 규제적인 기계장치를 포함한다. 이르거나 늦거나, 두려움 본능은 금기, 협약 그리고 종교적 제재를 수단으로 생존하는, 이들 제도의 확립을 육성한다. 그러나 두려움, 무지 그리고 미신은 모든 인간 제도들의 초기 기원과 뒤이어진 발달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해왔다.

69:1.4 (772.7) 2. 자아-영속의 제도들. 이것들은 성에 대한 굶주림, 모성 본능 그리고 종족들의 고등 감정들에서 자라나온 사회의 제도들이다. 그 속에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가정생활, 교육, 윤리 그리고 종교에서의 사회적 보호 수단을 포용하고 있다. 그것들에는 결혼 관습, 방어를 위한 전쟁, 그리고 주택 건축이 포함된다.

69:1.5 (772.8) 3. 자아-충만의 제도들. 이것들은 허영심의 성향들과 자부심의 감정들로부터 자라난 실천 관행들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옷 입는 관습과 개인적 치장, 사회적 풍습, 영광을 위한 전쟁, 춤, 오락, 놀이, 그리고 관능적 만족을 위한 다른 위상들을 포용한다. 그러나

문명이 자아-충족에 대한 뚜렷한 제도를 진화시킨 적은 결코 없었다.

69:1.6 (772.9) 이러한 세 가지 집단의 사회적 실천 관행들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고 끊임없이 서로 의존되어 있다. 유란시아에서, 이들 여러 제도들은 하나의 단일 사회적 기능구조로 기능하고 있는, 하나의 복합적인 조직을 나타낸다.

제 2 장. 근면성의 시작

69:2.1 (773.2) 원시적 형태의 산업은 식량 부족에 대한 공포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서서히 나타나게 되었다. 초기에 살았던 사람은, 식량난이 닥치는 때를 대비하여 풍부한 수확이 있는 기간 동안 양식을 저장하는 방법을 어떤 동물들로부터 배우기 시작하였다.

69:2.2 (773.3) 초기의 검소함과 원시적 산업이 동트기 전에는, 대부분의 일반 부족은 궁핍과 실제 고통을 겪었다. 초기 사람은 자기 양식을 위하여 동물 세계 전체와 경쟁해야만 했다. 경쟁의-중력은 언제나 사람을 짐승의 차원으로 끌어 내린다; 가난은 사람의 자연적인 처지이며 그리고

가혹적인 처지이다. 부(富)는 자연적인 선물이 아니다; 노동과 지식 그리고 조직으로부터 나온 결과이다.

69:2.3 (773.4) 원시인은 관계적-연합의 장점을 깨닫는 데 느리지 않았다. 관계적-연합은 조직을 형성하였고, 조직에 의해 나타나는 최초의 결과는 노동의 분화(分化)와, 그로 인한 시간과 물질의 직접적인 절약이었다. 이러한 노동의 전문화는 압력에 대한 적응력—저항이 약해지는 길을 추구함—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원시의 야만인들은 무엇이든지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거나 자발적으로 한 실제적인 일은 전혀 없었다. 그들의 순응은 필요에서의 강요로 인한 것이었다.

69:2.4 (773.5) 원시인은 힘든 일을 싫어하였고, 심각한 위험에 닥치지 않는 한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노동에 있어서의 시간적인 요소, 특정한 시간 한도 내에서 주어진 임무를 한다는 관념은, 전적으로 현대적 관념이다. 고대의 사람들은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 초기 사람의 자연적으로는 활발하지 않은 종족들을 산업의 큰길로 몰아붙인 것은, 실존을 위한 맹렬한 분투와 계속 높아지는 생활기준에 대한 2중의 요구였다.

69:2.5 (773.6)

노동, 의도적인 노력이 사람을 짐승과 구분시키는데, 그의 노력은 주로 본능적인 것이다. 노동에 대한 필요성은 사람의 가장 우선적인 축복이다. 영주의 참모진은 모두 일을 하였다; 유란시아에서 행해지는 육체적인 노동을 고상하게 만들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였다. 아담은 원예가였으며; 히브리인들의 하느님도 일을 하였다—그는 창조자였고 만유(萬有)를 유지하는 분이였다. 히브리인들은 산업을 최극으로 높이 평가한 최초의 부족이었는데, 그들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수 없다”고 선언한 최초의 민족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종교들 대부분은 놀고 지내는 초기 관념으로 되돌아갔다. 주피터는 술 마시고 흥청대는 사람으로 묘사되었고, 부처는 한가하게 묵상하는 것을 신봉하는 자로 바뀌었다.

69:2.6 (773.7)

산각 부족들은 열대지방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을 때 제법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마술을 신봉하는 게으른 자들과 일하기를 주장하는 자들—장래를 대비하는 자들—사이에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갈등이 있었다.

69:2.7 (773.8) 인간의 첫 번째 선견지명은 불, 물 그리고 음식의 저장으로 방향을 잡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원시인은 본성적으로-태어난 도박꾼이었다; 항상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였고, 이러한 초기 시대 동안 참아내는 실천으로부터 생긴 성공들을 너무나 자주 모두 주문에서 기인된다고 여겼다. 마술은 선견지명. 자아-부정. 산업에 느리게 길을 비켜주었다.

제 3 장. 노동의 전문화

69:3.1 (773.9) 원시 사회의 노동 분할이 처음에는 자연 환경에 의해 결정되었고, 그 후에는 사회 환경에 의해 결정되었다. 노동에 있어서 초기에 전문화된 조직은 다음과 같다:

69:3.2 (774.1) 1. 성(性)에 기초된 전문화. 여성의 일은 어린아이의 선택적인 현존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아기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선천적으로 여인들은 남자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여성은 일상적인 일을 하게 되었고, 반면에 남성은 사냥꾼과 전사가 되었는데, 특정한 기간 동안 일하고 휴식을 취하였다.

69:3.3 (774.2) 모든 시대들마다, 금기의 제약에 의해서 여인들은 자기 분야 이외에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남성은 가장 이기적으로 자기에게 더 알맞은 일을 선택하였고, 일상적인 단조로운 일은 여성에게 맡겼다. 남성은 언제든지 여성의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지만, 여성은 남성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정을 꾸미고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남성들과 여성들이 둘 모두 함께 일하였던 것이다.

69:3.4 (774.3) 2. 나이와 질병의 결과로 발생한 변형. 이러한 차이들은 다음 단계의 노동 분할을 결정하였다. 노인들은 일찍부터 연장과 무기를 만드는 일에 배치되었다. 나중에는 물을 끌어들이는 일이 그들에게 할당되었다.

69:3.5 (774.4) 3. 종교에 기초한 분화. 주술사(呪術師)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면제받은 최초의 인간 존재들이었다; 전문적인 계급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대장장이들은 주술사들에 필적할 만큼 요술쟁이로 취급되는 작은 집단들이었다. 금속을 다루는 그들의 작업 기술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흰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들"과 "검은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들"로 인하여 백색 마술과 흑색 마술에

대한 초기 믿음들이 기원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나중에 선한 귀신들과 악한 귀신들,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미신 속에 포함되었다.

69:3.6 (774.5) 대장장이들은 특별한 혜택을 누린 최초의 비종교적 집단이었다. 그들은 전쟁이 있을 동안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이러한 특별대우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의 계급, 원시 사회의 정치꾼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들이 야비하게 남용됨으로 말미암아 대장장이들은 널리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되었으며, 주술사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기들의 경쟁자에 대한 적개심을 더욱 부추겼다. 과학과 종교 사이에 있었던 최초의 시합에서 종교(미신)가 승리를 거두었다. 대장장이들은 마을에서 쫓겨난 후에, 주거지역의 외곽에서, 최초의 여인숙, 공공 하숙집을 운영하게 되었다.

69:3.7 (774.6) 4. 주인과 노예. 노동에 있어서 그 다음의 분화는 정복자와 피(被)정복자의 관계에서 발생되었고, 그것은 인간 노예제도의 시작을 의미하였다.

69:3.8 (774.7) 5. 다양한 육체적 정신적 자질들에 기초된 분화. 노동의 더 많은 분할은 인간들이 선천적인 재능의 차이에

의해서 더욱 조장되었는데; 모든 인간 존재들이 똑같은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69:3.9 (774.8) 산업에서 최초의 전문가들은 부싯돌을 가공하는 자들과 석공(石工)들이었고; 그 다음에 대장장이들이 출현하였다. 나중에는 집단적인 전문화가 이루어졌으며; 전체 가족들과 씨족들이 특정한 종류의 노동에 전념하였다. 가장 오래된 사제 특권계급들 중 하나의 기원은, 부족의 주술사와는 별도로, 칼-만드는 자들 전문가 가족을 미신적으로 우러러 받드는 것으로부터 기인되었다.

69:3.10 (774.9) 산업에서 최초의 집단 전문가들은 암염(巖鹽) 수출업자와 도공(陶工)들이었다. 여인들은 단순한 모양의 질그릇을 만들었고 남자들은 장식을 곁들인 모양을 만들었다. 어떤 부족들 가운데에서는 여자들이 바느질과 천 짜는 일을 맡았고, 그 나머지 일들은 남자들이 하였다.

69:3.11 (774.10) 초기 상인들은 주로 여성이었었는데; 그들은 첩자로 고용되었고, 거래하는 일은 덤이었다. 마침내 무역이 확대되자, 여인들은 중개인—도매상—으로 활동하였다. 이윽고 상인 계급이 형성되어, 자기들의

봉사에 대한 수수료와 이익을 부과하게 되었다. 집단들이 늘어나면서 물물교환은 상업으로 발전되었다; 상품 교환에 뒤이어 숙련된 기술의 교환이 이루어졌다.

제 4 장. 거래의 시작

^{69:4.1 (775.1)} 계약에 의한 결혼에 이어서 생포에 의한 결혼이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물물 교환에 의한 거래 이후에는 습격에 의한 강탈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무언으로 물물교환을 하는 초기 실천 관행과 현대적 교환 방식 사이에는 오랜 세월 동안의 해적 행위가 있었다.

^{69:4.2 (775.2)} 최초의 물물교환은 무장된 상인들이 중간 지점에 자기들의 상품을 남겨둌으로써 수행되었다. 여인들은 최초의 시장들을 점유하였고; 최초의 무역업자들이었으며, 이것은 그들이 무거운 짐을 나르는 역할을 한 반면에; 남자들은 전사였기 때문이었다. 무역 거래소, 무역업자들이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갈 수 없도록 막기에 충분할 정도로 넓은 성벽이 매우 일찍부터 개발되었다.

^{69:4.3 (775.3)} 무언의 물물교환을 위해 가져다 놓은 물건들을 지키는 일에 미신적인 상징물이 이용되었다. 그러한

시장은 도둑질을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졌고, 물물교환이나 구매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가져갈 수 없었다; 미신적인 상징물의 보호로 인하여 물건들은 언제든지 안전하였다. 초기의 무역업자들은 자기 부족들 간에는 철저하게 정직하였지만, 먼 곳에서 온 이방인들을 속이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심지어 초기의 히브리인들도 이방인들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윤리 규범을 인정하였다.

69:4.4 (775.4) 무언의 물물교환이 오랜 세월 계속된 후에, 사람들은 무장하지 않은 채로 신성시되는 시장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바로 이 매매 장소들은, 신전(神殿)이 세워진 최초의 장소가 되었으며, 어떤 지방들에서는 나중에 “피난의 도시”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그 매매 장소에 당도한 도피자들은 누구든지 안전하였고 공격받을 염려가 없었다.

69:4.5 (775.5) 최초의 거래 단위는 소맥과 다른 곡식들이었다. 최초의 교환 수단은 물고기 또는 염소였다. 나중에는 암소가 물물교환의 단위가 되었다.

69:4.6 (775.6) 현대의 필기 기술은 초기 무역 거래 기록들에서 기원되었다; 사람의 최초 문서는 거래-진흥 서류, 소금을 선전하는 것이었다. 초기에 일어난 전쟁들의 대부분은 부식돌과 소금 그리고 금속들과 같은 자연적인 매장물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다. 부족들 간의 최초의 공식적인 조약은 매장된 소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조약을 맺은 이러한 장소들은, 서로 친근하고 평화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부족들이 서로 섞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69:4.7 (775.7) 필기 기술은, "소식 막대기", 매듭을 만든 끈, 그림으로 쓰기, 상형문자, 그리고 조가비를 구슬로 엮은 띠 등과 같은 단계를 거쳐, 초기의 기호화된 자모(字母) 문자로 발전되었다.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은 연기로 신호를 보내는 원시적 형태로부터 진화되어, 보발(步撥)꾼, 동물 기수(騎手), 철도 그리고 비행기를 이용하였고, 전보와 전화 그리고 무선 통신을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69:4.8 (775.8) 새로운 착상과 보다 나은 방법들은 고대의 상인들에 의해서, 사람이 사는 모든 세계로 퍼져 나갔다.

모험과 손을 잡은 상업은 탐험과 발견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운송수단이 생겨나게 되었다. 상업은 문화의 교류를 증진시킴으로써, 문명을 발달시키는 일에 크게 공헌하였다.

제 5 장. 자본(資本)의 시작

69:5.1 (775.9) 자본은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유보하도록 노력한 것이다. 저축은 유지와 생존을 위한 대비책의 한 형태이다. 양식 저장은 자아-통제를 개발하였고 자본과 노동에 대한 최초의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양식을 소유한 자는, 만일 그것을 약탈자로부터 보호할 수만 있다면, 양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보다 뚜렷한 이점(利點)을 가졌다.

69:5.2 (775.10) 초기의 은행가는 그 부족 중에서 용감한 남자였다. 그는 그 집단의 보물들을 보관하였고, 그 씨족(氏族) 전체는 공격의 사건이 있을 때, 그의 집을 방어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각 개별존재들의 자본과 집단의 재산은 즉각적으로 무리 조직을 구성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예방조치들이 고안되었지만, 나중에는 이웃

부족들의 토지와 재산을 탈취하는 시대가 시작됨으로써
무리 조직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실천 관행으로 되었다.

69:5.3 (776.1) 자본의 축적을 발생시킨 근본적인 충동은 다음과
같다:

69:5.4 (776.2) 1. 굶주림—선견과 연관됨. 양식 절약과 저장은
힘을 의미하였고, 충분한 선견지명을 가짐으로써 장래의
필요시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양식
저장은 굶주림과 재난에 대한 대비책이었다. 원시 형태의
사회관례 전체 몸체는, 실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복종시키는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되었다.

69:5.5 (776.3) 2. 가족사랑—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하려는
욕망. 자본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산을 저축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래적 수요의 일부는 자기 자손에게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다.

69:5.6 (776.4) 3. 허영심—자기 재산 축적을 과시하고자 하는
바람. 여분의 옷은 남들보다 우수함을 보여주는 최고

상징물들 중의 하나였다. 수집하는 허영심은 일찍부터 사람의 자부심을 자극하였다.

69:5.7 (776.5) 4. 지위—사회적 정치적 명성을 얻고자하는 열망. 상업화된 귀족 신분, 특권 계급이 되도록 하는 어떤 특별한 봉사 수행에 의존하거나 돈으로 확실하게 보상을 받는 권리가 일찍부터 생겨났다.

69:5.8 (776.6) 5. 힘—주인이 되고자하는 갈망. 재산을 빌려주는 행위, 이러한 고대의 시대에 통용된 매 년 100%의 대부 이자율은, 노예를 만드는 수단으로 자행되었다. 돈을 빌려준 자들은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상비군으로 조직함으로써 스스로를 왕으로 만들었다. 노예화된 종들은 축적할 수 있는 재산들 중에서 가장 초기 형태에 속하였으며, 고대에는 빚으로 인한 노예 상태가 확장되어 그 시체까지도 통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69:5.9 (776.7) 6. 죽은 자의 귀신에 대한 공포심—보호를 위한 사제 사례금.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음 단계의 삶을 통하여 향상되도록 촉진시키는 일에 자신들의 재산이 사용되도록 할 목적으로 일찍부터 죽음에 대한 예물을 사제들에게

주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제들은 큰 부자가 되었고; 고대의 자본가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에 해당되었다.

69:5.10 (776.8) 7. 성(性) 충동—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아내를 사려는 열망. 사람의 최초 거래 형태는 여자를 교환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말의 거래보다 훨씬 전이었다. 그러나 성(性) 노예로 팔아넘기는 것은 사회를 전혀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그러한 왕래는 과거에도 지금도 종족의 치욕이고, 그것은 한꺼번에 그리고 동시에 가정생활의 발전을 저해하고 우월한 민족들의 생물학적 적합성을 오염시켰다.

69:5.11 (776.9) 8. 자아-충족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형태들. 어떤 사람들은 부귀가 힘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 안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애써 얻으려고 한다. 초기 사람(그리고 어느 정도 후대의 사람들도)은 사치를 부리는 일에 자기 자산을 탕진하는 경향이 있었다. 취하게 하는 것과 마약은 원시종족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69:5.12 (776.10) 문명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은 저축에 대한 새로운 동기들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필요성들이 양식에 대한

기원적인 갈망에 덧붙여졌다. 가난을 무척 싫어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 오직 부자들만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재산이 너무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허영심으로 잔치를 베풀어서 자기 이름으로부터 불명예를 씻으려고 하였다.

69:5.13 (777.1) 재산의 축적은 일찍부터 사회적인 영예의 상징이 되었다. 특정 부족의 개별존재들은 어느 축제일에 자기 재물을 태우거나 부족민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특별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그것을 모으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심지어는 현대의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절제하게 나누어줌으로써 낭비하고 있으며, 반면에 부자들은 자선 단체와 교육 기관들에게 크게 자질로서 부여한다. 사람의 기법은 변하지만, 이러한 기질은 거의 변함없이 남아 있다.

69:5.14 (777.2) 그러나 고대의 부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재물을 탐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재물을 많이 나누어주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재산에

대한 거드름을 피우기 위해 다수의 노예들을 희생 제물로 바쳤다.

69:5.15 (777.3) 비록 자본이 사람을 해방시키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가 소속된 사회적이고 산업적인 조직을 크게 복잡하게 만들었다. 공정하지 못한 자본가들에 의한 자본의 악용도, 그것이 현대 산업 사회의 기초라는 사실을 파기시키지는 못한다. 자본과 발명을 통하여, 현재의 세대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있었던 어느 시대보다도 뛰어난 수준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것은 경솔하고 이기적인 보호관리자들에 의해서 자본이 여러 번 오용된 것에 대한 변명으로가 아니라 하나의 사실로 기록하는 것이다.

제 6 장. 문명과 불의 관계

69:6.1 (777.4) 네 개의 분야—산업적, 규제적, 종교적, 군사적—로 구성된 원시적 사회는 불, 동물들, 노예들, 그리고 토지라는 수단들을 통하여 발생되었다.

69:6.2 (777.5) 불을 피우는 행위는, 단 한 번의 도약에 의해서, 사람을 언제까지나 동물로부터 구분시켰으며; 그것은 근본적인 발명 또는 발견이었다. 불은 모든 동물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밤에도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하였다. 불은 황혼 무렵의 사회적 교제를 북돋았다; 추위와 맹수들을 물리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귀신들에 대항하는 안전책이 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처음에는 열을 위한 수단보다 빛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진보가 늦은 부족들 대부분은 밤새도록 불꽃이 타오르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69:6.3 (777.6)} 불은 문명화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혼자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불이 살아있는 숲을 그로 하여금 이웃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아무 손해 없이 남에게 유익을 줌으로서 이타적 존재가 되는 최초의 수단이 되었다. 한 집안의 불은 어머니 또는 가장 나이가 많은 딸에 의해서 보존되었는데, 방심하지 않는 태도와 믿음직스러운 태도를 요구하는, 최초의 선생 역할을 하였다. 초기 시대의 가정은 건물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그 가족들은 가족 공동 화로인 모닥불 주위에 모여 있었다. 새로운 가정을 꾸민 아들은 그 가족 공동 화로에서 불씨를 옮겨갔다.

69:6.4 (777.7) 불을 처음 발견한 안돈은 그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을 피하였지만, 그의 자손들 대부분은 그 불꽃을 경배 대상 또는 하나의 영으로 간주하였다. 그들을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청결하게 만드는 불의 효용가치를 이용하지 못하였다. 원시인은 불을 두려워하였고 그것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여 냄새가 적게 나도록 하려고 항상 애를 썼다. 고대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 속에 침을 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오르는 불과 어떤 사람 사이를 결코 지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초기 인류는 심지어는 불을 붙이는데 사용된 황화철과 부싯돌들을 신성한 것으로 여겼다.

69:6.5 (777.8) 불을 끄는 것은 하나의 죄였으며; 만일 집이 불에 타게 되면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신전(神殿)과 성지(聖地)에 있는 불들은 신성시되었고, 일 년에 한 번 그리고 어떤 재난이 있을 후에 새로 불을 붙이는 것이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불을 절대로 밖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 여인들이 사제로 선택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집에 있는 불의 보호관리자였기 때문이었다.

69:6.6 (778.1) 불이 어떻게 하여 하느님들로부터 내려왔는지에 관해 기록된 초기의 신화들은 번갯불에 의해서 불이 붙는 것을 목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초자연적 기원에 대한 이 관념들은 불을 경배하도록 직접적인 작용을 하였으며, 불에 대한 경배는 “불을 통과하는” 풍습을 낳게 하였고, 그 실천 관행은 모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불을 통과하게 된다는 관념이 여전히 존속되었다. 불에 대한 신화는 초기 시대에 있어서 엄청난 속박의 도구였으며 파시 교도들의 상징주의 속에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69:6.7 (778.2) 불로 인하여 조리법이 생겼고,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조롱하는 표현이 되었다. 그리고 음식을 요리함으로써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가 음식을 소화하는 일에 소모되는 것을 줄여주었고, 그리하여 초기 사람은 사회적인 문화를 위한 어느 정도의 힘을 갖게 되었으며, 반면에 목축업은 양식을 확보하기에 필요한 노력을 줄임으로써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69:6.8 (778.3) 불로 인하여 금속 가공이 가능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증기력(蒸氣力)을 발견하게 하였으며 지금-현재에는 전기를 이용하게 되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 7 장. 동물의 활용

69:7.1 (778.4) 처음에는, 동물세계 전체가 사람의 적(敵)이었고, 인간 존재들은 짐승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었다. 초기에는 사람이 동물을 먹는 것으로 그쳤지만 나중에는 그것들을 길들이는 방법을 배웠고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도록 만들었다.

69:7.2 (778.5) 동물들을 길들이는 일은 우연히 시작되었다. 그 야만인들은 마치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들소를 사냥했던 것과 흡사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사냥하였다. 가축 떼를 포위함으로써 그 동물들을 계속 통제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양식이 부족할 때 그것들을 잡을 수 있었다. 나중에는, 가축우리들이 건축되었고, 가축 떼 전체를 사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

69:7.3 (778.6) 어떤 동물들은 코끼리의 경우처럼 길들이기가 용이하였지만, 그것들 대부분은 속박된 상태에서는 새끼를 낳지 않으려고 하였다. 특정한 종류의 동물들이

사람의 현존에게 복종하고, 포로로 된 상태에서도 새끼를 낳는다는 사실을 점점 더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물을 길들이는 일은 선택적인 번식, 달라마시아 시대 이후로 크게 진보를 이룩한 기술에 의해서 장려되었다.

69:7.4 (778.7) 개는 길들여진 최초의 동물이었고, 그것을 유순하게 만드는 어려운 체험은 한 마리 개가 하루 종일 사냥꾼 주변을 맴돌다가 그를 따라서 실재적으로 집에까지 오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개들은 양식, 사냥, 운반 수단, 그리고 동행자신분으로 이용되었다. 처음에는 개들이 소리를 길게 뿜으며 짖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중에는 울리는 소리로 짖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냄새에 대한 개의 날카로운 감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들을 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으며, 개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예배종파들이 생기기도 하였다. 감시하는 개를 활용함으로써, 처음으로 씨족 전체가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그 후에는 영들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적들로부터 집을 보호하는 일에 감시견(監視犬)들을 활용하게 되었다. 개가 짖을 때에는 사람이나 짐승이 가까이 온 것이고, 길게 소리 내어 울 때에는 영들이 가까이 온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개가 밤에 길게 소리
내어 우는 것은 죽음에 대한 전조(前兆)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69:7.5 (778.8) 남자가 사냥을 하던 시절에는, 여자에게 제법
친절하였지만, 동물들을 길들인 후에는, 칼리가스티아에
의한 혼란이 가중되어, 많은 부족들이 자기의 여자들을
고약스럽게 취급하였다. 그들은 마치 자기 동물들을
취급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여자들
전체를 취급하였다. 여자에 대한 남자의 잔인한 대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들 중의 하나를 장식하고
있다.

제 8 장. 문명의 한 요소인 노예 제도

69:8.1 (778.9) 원시인은 자기 동료들을 노예로 삼는 일에 결코
망설이지 않았다. 여성이 최초의 노예, 가정의 노예였다.
목축을 하는 남성은 여성을 노예화하여 자기보다 열등한
성(性)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성적 노예는 전적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의존도가 줄어든 것에서 기인되었다.

69:8.2 (789.1)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노예를 삼는 일은 정복자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전쟁 포로에게 해당되는

것이였다. 보다 먼 옛날에는 포로들을 잡아먹거나, 화형 시키거나, 서로 싸우게 하거나, 초자연적 존재에게 희생제물로 삼거나, 아니면 노예로 삼았다. 노예 제도는 대량학살이나 사람을 잡아먹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진보된 것이였다.

69:8.3 (789.2) 노예를 삼는 것은 전쟁 포로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에 한 단계 전진을 이룩하는 것이였다. 아이 종족의 복병들이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학살하면서, 정복자로서의 자만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오직 그 왕만을 살려두었던 것은, 문명인으로 여겨지는 민족들까지도 야만적인 대량학살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오그를 습격한 바산의 왕 역시 잔인하게 효력을 보였다.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적들을 “철저하게 섬멸”하였고, 모든 재산을 전리품으로 가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남자들이 멸절되는” 공포 위에서 모든 도시들에게 공물을 강요했다. 그러나 당대의 부족들 대부분은 부족한 이기주의가 훨씬 덜하였고, 우월한 포로들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실천 관행이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었다.

69:8.4 (789.3) 아메리카의 적색 인종과 같은 사냥꾼들은 노예를 삼지 않았다. 그들은 포로들을 양자로 받아들이거나 죽였다. 목축을 하는 민족들 가운데에서는 노예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노동인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전쟁에서 목자(牧者)들은 붙잡힌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만을 노예로 삼는 것을 실천 관행으로 만들었다. 모세의 법전은 이러한 여자 포로들을 아내로 삼는 일에 대해 특별히 지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히브리인들은,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 돌려보낼 수는 있었지만, 배우자가 되지 못한 그들을 노예로 파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그것은 문명화에 있어서 적어도 한 걸음 진보적인 것이었다. 비록 히브리인들의 사회적 규범이 미숙하기는 하였지만, 주변에 있는 부족들보다는 훨씬 앞선 것이었다.

69:8.5 (789.4) 목자들은 최초의 자본가였는데, 그들이 소유한 가축 떼는 자본금에 해당되었고, 그들은 이자로—자연적인 증가—생활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재산을 노예나 여자에게 맡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이 남자 포로들을 거느렸고 그들로 하여금 땅을 일구도록 시켰다. 이것이 농노제—토지에 부속된

사람—의 초기 기원이었다. 아프리카 사람에게는 땅을 일구는 방법을 쉽게 가르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대한 노예 인종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69:8.6 (789.5) 노예제도는 인간 문명의 연결 고리들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고리였다. 그것은 혼돈과 게으름의 상태에서부터 질서와 문명화된 활동으로 옮겨가는 다리였으며; 진보가 느리고 나태한 민족들로 하여금 일하도록 강요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보다 우월한 자들의 사회적인 진출을 위하여 재산과 여가 시간을 제공하였다.

69:8.7 (789.6) 노예제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원시 사회에 대한 규제적 기능구조를 창안하도록 강요하였다; 정부 형태가 시작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다. 노예제도는 강력한 규정을 필요로 하였으며, 유럽의 중세 시대 동안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라지게 된 것은 봉건 군주들이 노예들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진보가 느린 고대의 부족들은, 오늘날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처럼, 노예를 소유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69:8.8 (789.7) 사실, 노예제도는 압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산업을 배운 것은 고난스러운 그 학교에서였다. 결국에는 그 노예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강제로 도움을 주어야만 하였던 높은 사회가 이룩한 축복들을 서로 나누게 되었다. 노예제도는 문화적인 조직과 사회적인 진보를 이룩하지만, 가장 심각한 모든 파괴적인 사회적 병폐들이 되어 곧 사회를 내부적으로 교활하게 공격한다.

69:8.9 (789.8) 현대의 기계 발명으로 말미암아 노예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 노예제도는, 일부다처제처럼, 이익을 얻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많은 숫자의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항상 비참한 결과를 초래 한다; 그들이 점차적으로 해방될 때 문제가 적게 발생된다.

69:8.10 (780.1) 오늘날, 사람들은 사회적인 노예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게 하여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야심을 품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노예제도는 하나의 새롭고도 개선된 형태의 변형된 산업적 노예제도가 형성되게 하였다.

69:8.11 (780.2) 보편적인 자유가 이상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반면, 게으름이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적어도 자아-지탱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강제적으로라도 해야만 한다.

69:8.12 (780.3) 현대 사회는 반대로 가고 있다. 노예제도는 거의 사라졌고; 길들인 동물도 사라지고 있다. 문명은 힘을 얻기 위해 불—무기체의 세계—을 향하여 되돌아 내 뺀고 있다. 사람은 불, 동물, 그리고 노예제도를 거쳐 야만적 상태로부터 올라 왔는데, 오늘날 사람은 노예의 도움과 동물들의 보조를 뒤로 버려가면서, 한편으로는 자연의 원소 창고(倉庫)로부터 나오는 부(富)와 힘의 새로운 비밀과 근원을 짜내려고 추구하며 내뺀고 있다.

제 9 장. 사유 재산

69:9.1 (780.4) 원시 사회가 실질적으로 공동 사회였던 반면, 원시인은 공산주의에 대한 현대적 학설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초기 시대의 공산주의는 단순한 이론이나 사회적인 정책이 아니었다; 단순하고 실천적인 자동 조절을 이루었다. 공산주의가 빈곤한 상태와 결핍을

방지하였고; 고대의 부족들은 구걸과 타락은 거의 생각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다.

69:9.2 (780.5) 원시적인 공산주의는 사람들의 차원을 유별나게 낮춘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상태를 고양시키지도 않았지만, 게으름과 나태함을 장려하였고, 산업을 억제하였으며 야망을 소멸시켰다. 공산주의는 원시 사회의 성장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발판이기는 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인간의 강력한 4가지 성향에 거슬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사회 계층으로 진화되도록 길을 비켜주게 되었다:

69:9.3 (780.6) 1. 가족. 사람은 재산 축적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재물들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원시적 공산 사회에 있어서 한 사람의 자산은 즉시 소비되거나 아니면 그가 죽었을 때 집단들에게 분배되었다. 증여되는 재산이 없었다.—증여세가 100%였다. 축적된 자산과 부동산을 증여하는 후대의 사회관례는 뚜렷한 사회적 진보였다. 그리고 자본이 잘못 사용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야비한 악용이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69:9.4 (780.7)

2. 종교적 성향들. 원시인은 차후의 실존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삶을 위한 토대로써 재산을 모으기를 바라기도 하였다. 이러한 동기 때문에, 사람을 매장할 때 그의 개인적인 소장품들을 함께 묻는 풍습이 오래 전부터 행해졌던 것이다. 고대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부자들만이 어떤 즉각적인 기쁨과 존엄을 갖춘 죽음에서 살아난다고 믿었다. 계시된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특별히 그리스도교의 선생들은,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처음으로 선포하였던 것이다.

69:9.5 (780.8)

3. 해방과 여가 시간에 대한 갈망. 사회적 진화의 초기시대에 있어서, 집단 속에서의 개별적인 소득 분배는 실질적으로 노예제도의 한 형태였으며; 노동자들은 게으름뱅이들에게 노예처럼 혹사되었다. 공산주의가 자멸하게 된 허약성은: 장래를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약하는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의존하였다는 사실이다. 심지어는 현 시대에서도, 장래를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가(절약하는 세금 납부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돌보도록 의존하고 있다.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자기를 먹여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69:9.6 (780.9)

4. 안전과 권세에 대한 충동. 공산주의는, 자기 부족들의 무기력한 게으름뱅이들에게 노예상태로 있는 것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 있어서, 다양한 구실들에 의존하는 호소하는 진보적이고 성공적인 개별존재들의, 기만적인 실천 관행에 의해서 마침내 파괴되고 말았다. 그러나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비밀리에 축적되었고; 원시적인 불안정 때문에 자본의 공개적인 축적이 방해되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후대에 이르러서도, 너무 많은 재산을 모으는 일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왕은 부자의 재산을 반드시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계약, 부자가 죽었을 때 그 가족이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또는 왕에게 많은 돈을 상속세로 바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비책(秘策)을 꾸미고자 하였다.

69:9.7 (781.1)

아주 먼 옛날에는 여인들이 그 공동체의 재산이었으며, 어머니가 가족을 지배하였다. 초기 시대의 우두머리들이 모든 땅을 소유하였고 모든 여인들의 소유자였으며;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족 통치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하였다. 공산주의가 물러나면서, 여인들은 개별적으로 소유되었고, 점점 더 아버지가 가정의 통제를 행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가정이

시작되었고, 널리 행해지던 일부다처제 관습들은 점차적으로 일부일처제로 바뀌었다. (일부다처제는 결혼에 있어서 여성-노예제도 요소가 잔존한 것이다. 일부일처제는, 가정의 설립, 자녀 양육, 공동 문화, 그리고 자아-향상이라는 더 없이 훌륭한 모험적 체계 속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적-연합을 이룬다는 노예-해방의 이상이다.)

69:9.8 (781.2) 처음에는, 연장들과 무기들을 포함한 모든 재산이 부족의 공동 소유였다. 개인적인 재산은 직접 손을 댄 모든 물건들로 먼저 이루어졌다. 만일 낫선 사람이 그릇에 있는 물을 마셨다면, 그 그릇은 그 때부터 그의 소유가 되었다. 그 다음에는, 피를 뿌린 장소는 어디든지 상처를 낸 그 사람 또는 집단의 재산이 되었다.

69:9.9 (781.3) 그렇게 해서 사유재산은 높이 평가되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소유주의 개인성의 일부분을 채워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미신을 토대로 하여 재산에 대한 정직성이 안전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개인에게 소속된 것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었다. 남자들이 다른 부족들의 재물들을 빼앗는 것은 주저하지 않았지만,

그 집단 내에서는 훔치는 일이 없었다. 재산과의 관계는 죽음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물건들을 불에 태웠고, 그 다음에는 시체와 함께 묻었으며, 후대에 이르러서는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부족에게 물려주었다.

69:9.10 (781.4) 장신구 종류의 개인 소지품들은 마력을 몸에 지닌다는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허영심과 함께 초기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좋아하는 마법의 물건들을 가져가려는 어떤 공격도 용서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소유물은 생활필수품들보다 훨씬 귀하게 여겨졌다.

69:9.11 (781.5) 잠을 자는 공간은 사람의 초기 재산들 중의 하나였다. 나중에는 그 집단을 위해 모든 부동산을 맡고 있는 부족의 우두머리에 의해서 집터가 결정되었다. 이윽고 불을 피우는 자리가 소유지로 주어졌고, 좀 더 나중에는 우물이 인근 땅에 대한 소유권을 구성하게 되었다.

69:9.12 (781.6) 물구덩이들과 우물들은 최초의 사유 재산에 속하였다. 미신적인 숭배 실천 관행 전체는 물구덩이들,

우물들, 나무들, 농작물들, 그리고 꿀을 보호하는 데 이용되었다. 미신적인 송배물에 대한 신앙이 사라진 후에는, 사적인 소유물들을 지키기 위하여 법규가 진화되었다. 그러나 수렵법, 사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토지법보다 훨씬 전에 생겼다. 아메리카의 적색 인종은 땅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백색 인종들의 관점을 납득할 수 없었다.

69:9.13 (781.7) 사유 재산은 일찍부터 가족 표식에 의해 표시되었고, 이것은 가족 문장의 효시가 되었다. 부동산 역시 영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제들은 땅을 “신성하게” 할 수 있었고, 그 위에 세워진 마법을 가진 금기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소유주들은 그 때부터 “사제들의 증서”를 가진 것으로 부르게 되었다. 히브리인들은 이러한 가족 경계표들을 무척 존중하였는데: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적혀 있었다. 돌로 만든 이 표지들 위에는 사제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름이 새겨질 때에는 나무들조차도 사유 재산이 되었다.

69:9.14 (782.1)

초기 시대에는 오직 농작물만이 사유 재산이었지만, 연속되는 농작물이 소유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농업은 땅을 사적인 소유가 되도록 하는 기원이 되었다. 개별존재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땅의 소유권이 주어졌고, 죽은 후에는 부족의 소유로 되돌려졌다. 땅의 소유권이 개별존재에게 수여된 가장 최초의 경우는 무덤—가족 공동묘지—이었다. 후대에 이르러서, 땅은 담을 세운 사람에게 소속되었다. 그러나 성읍들은 포위 공격을 받을 때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의 목초지로 일정한 땅을 예비해 두었다; 이러한 “공동 토지”는 초기의 공동 소유 개념이 잔존된 대표적인 예이다.

69:9.15 (782.2)

결국에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국가가 소유지를 개별존재들에게 나누어주게 되었다. 땅 임자들은, 자기들의 소유권을 보장하도록 만들면서, 땅을 빌려준 삯을 받을 수 있었고, 땅은 소득의 근원—자본—이 되었다. 마침내 땅은 판매, 이전, 저당, 담보 권리 상실의 방법과 함께 정당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69:9.16 (782.3) 사적인 소유권은 해방을 증대시켰고 안정성을 증진시켰지만; 땅에 대한 개인 소유권은 오직 공동 사회의 통제와 지도가 실패한 후에서야 사회적인 인정이 주어졌으며, 곧 그 뒤를 이어서 노예들과 농노들 그리고 땅이 없는 계급들이 연속적으로 생겨났다. 그러나 개선된 기계들이, 일에 노예 된 상태에서 사람들을 점차 벗어나게 하였다.

69:9.17 (782.4) 재산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순전히 사회적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 법, 계층, 평등권, 사회적 해방, 관습, 평화 그리고 행복의 전체는, 현대인들이 이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재산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상황에서 발생되어 왔다.

69:9.18 (782.5) 현재의 사회 계층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만—거룩하지도 않고 신성하지도 않음—, 인류는 서서히 변화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잘 대처할 것이다. 너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은, 너희 조상들이 알았던 어떤 체계보다도 대단히 월등하다. 너희가 사회적인 변화를 시도할 때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해라. 너희 조상들이 폐기시켰던 상투적인 방식을

다시 시도하려고 하지 마라. 후퇴하지 말고 전진해라!
진화가 계속되도록 노력해라! 뒷걸음질 치지 마라.

69:9.19 (782.6)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하여 제시되었음]

제 70 편 인간 정부의 진화

70:0.1 (783.1) 사람은 생활을 유지하는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자마자, 인간 상호간의 계약을 규제하는 과제에 부딪쳤다. 산업의 발달은 법과 질서 그리고 사회적 조절을 요구하였고, 재산의 사유화로 말미암아 정부가 필요하게 되었다.

70:0.2 (783.2) 진화하는 세계에서는, 반목은 자연적인 것이다; 평화는 어떤 종류의 사회적 규제적인 체계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사회적인 규정은 사회적 조직과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이고; 관계적-연합은 다소간의 통제하는 권한을 내포한다. 정부는 부족들, 씨족들, 가족들 그리고 각 개별존재들에서의 적개심에 대한 조화-협동을 강요한다.

70:0.3 (783.3) 정부는 무의식적으로 발전된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진화되어 간다. 그것은 생존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통적이 된다. 무정부 상태는 고통을 증강시키기 때문에, 정부, 상대적인 법과 질서가 서서히 창발되거나 창발하고 있다. 실존하기 위한 투쟁에 대한 강제적 요구는 인간들로 하여금 정말로 문명에 이르는 진보적 길을 걷도록 몰아붙인다.

제 1 장. 전쟁의 기원

70:1.1 (783.4) 전쟁은 진화하는 사람의 자연본능적 상태이자 유산이다; 평화는 문명의 발전 정도를 재는 사회적 척도이다. 진보하는 종족들이 부분적인 사회화를 이루기 전에, 사람은 대단히 개별적이고, 몹시 의심스러워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호전적이었다. 폭력은 자연본능의 법칙이고, 적의는 자연본능의 자녀가 지니는 자동적인 반응이며, 한편 전쟁은 단지 바로 이들 행동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문명을 구성하는 조직이 사회적 향상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압박감을 받게 되는 어느 곳이든지 그리고 어느 때든지, 인간 상호-연관에서의 율화를 폭력적으로 조절하려는 이들 초기 방법으로 즉시 되돌아가는 파괴적인 역행이 항상 존재한다.

70:1.2 (783.5) 전쟁은 오해와 자극들에 대한 동물적 반작용이다; 평화는 그러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한 문명화된 해결책에 수반되는 것이다. 산각 종족들은, 후대의 타락한 아담-사람들과 낫-사람들과 함께, 모두 호전적이었다. 안돈-사람들은 일찍부터 황금률을 배웠고,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후손인 에스키모인 들은 그 규범을 상당히 많이 지키고 있다; 그들은 관습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난폭한 반목은 상당히 없는 편이다.

70:1.3 (783.6) 안돈은 자기 자손들에게, 각자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면서 작은 막대기로 그것을 때리게 함으로써 분쟁을 진정시키도록 가르쳤으며; 막대기가 먼저 부러지는 쪽이 승리자가 되게 하였다. 후대의 안돈-사람들은, 공개적인 구경거리를 열어서 분쟁자들이 서로를 희롱하고 비웃도록 시켰고, 한편으로 청중들이 박수갈채로 승리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진정시키곤 하였다.

70:1.4 (783.7) 그러나 사회가 평화로운 기간을 실재적으로 체험하고 전쟁 비슷한 실천을 인가할 만큼 충분히 진화될 때까지는 전쟁이라고 할 만한 현상은 있을 수 없다.

전쟁한다는 바로 그 개념은 어느 정도의 조직이 있음을 의미한다.

70:1.5 (784.1) 사회 집단들이 생겨나자, 개별적인 자극들은 집단적 감정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이것은 부족 간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부족 내부의 평온을 증진시켜 주었다. 이처럼 평화는 처음에는 집단 또는 부족 내부에서 이루어졌고, 항상 그 집단에 속하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했다. 초기 사람은 외부인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일종의 덕목으로 간주하였다.

70:1.6 (784.2) 그러나 이것도 처음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초기 우두머리들이 오해들을 제거시키고자 하였을 때, 그들은 부족끼리 투석전(投石戰)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씩은 필요하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였다. 그 씨족은 두 개의 집단들로 나뉘어 하루 종일 싸웠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오직 재미를 위한 것이었고; 그들은 실제로 그러한 싸움을 즐겼던 것이다.

70:1.7 (784.3) 전쟁은 사람이 동물로부터 진화한 인간이고, 모든 동물들은 다 호전적이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게 된 초기 원인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70:1.8 (784.4) 1. 굶주림, 음식을 강탈하도록 만듦. 땅의 부족은 항상 전쟁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투쟁들의 와중에서 초기에 평화롭던 부족들은 실천적으로 멸절되었다.

70:1.9 (784.5) 2. 여성의 부족—가사 도움에서의 모자람을 해소시키려는 시도. 여자를 훔치는 일은 항상 전쟁의 원인이 되어왔다.

70:1.10 (784.6) 3. 허영심—부족의 용맹성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 우수한 집단들은 열등한 민족들에게 자기들의 생활 방식을 강요하기 위하여 싸우려고 하였다.

70:1.11 (784.7) 4. 노예들—노동자 계급 확보의 필요성.

70:1.12 (784.8) 5. 복수는, 한 부족이 자기 부족의 친구를 이웃 부족이 죽게 만들었다고 믿을 때 전쟁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었다. 머리를 집으로 가져올 때까지 계속 애곡(哀哭)하였다. 복수는 비교적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당하게 받아들여졌다.

70:1.13 (784.9) 6. 오락—이러한 초기 시대의 젊은이들은 전쟁을 오락처럼 여겼다. 만약 전쟁을 일으킬만한 그럴듯하고 충분한 구실이 생기지 않으면, 평화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 인접된 부족들은 가짜 전쟁을 즐기기 위하여 일종의 축제로써 늘 하던 장소로 나가서 다소 친근감을 갖는 전투를 벌이곤 하였다.

70:1.14 (784.10) 7. 종교—개종시키고자 하는 욕구. 원시적 종교들은 모두 전쟁을 인정하였다.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야 종교가 전쟁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성직자들은 불행하게도 대부분이 군사력과 결연관계를 이루었다. 오랜 시대 동안에 가장 큰 평화 운동들 중 하나는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70:1.15 (784.11) 고대의 이 부족들은 자기 하느님들이 명령하는 대로, 그들의 우두머리 또는 주술사들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일으켰다. 히브리인들은 “전쟁터의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이 미디안-사람을 침략한 것에 대한 기록은 고대의 부족 간의 전쟁이 지독하게 무자비하였던 것에 대한 전형적인 설명이었다; 모든 남자들을 학살하고 나중에는 처녀가 아닌 모든 여자와 모든 남자아이들을

학살하였던 갑작스러운 그 공격은, 20만 년 전의 부족
우두머리가 세운 사회관례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자행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70:1.16 (784.12) 이상(以上)은 사회의 진화—종족들의 문제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 곧 사람이 땅에서 자신의 운명을
해결해 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러한 잔학성들은,
그 책임을 자신들의 하느님들에게 돌리려는 사람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신(神)에 의해서 조장된 것이 아니다.

70:1.17 (784.13) 군사적(軍事的) 자비는 인류를 더디게 찾아왔다.
심지어는 드보라라는 여인이 히브리인들을 다스릴
때에도, 바로 이 대규모의 잔학한 행위가 계속되었다.
그녀의 지휘관은 이방인을 이긴 자신의 승리에서 “모든
무리가 칼날의 이슬이 되었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고
알려지게 만들었다.

70:1.18 (785.1) 종족 역사상 아주 초기에는 독약을 묻힌 무기들이
사용되었다. 손상시키기 위한 온갖 종류의 행위들이
실천되었다.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주는 대가로 다윗에게

필리스틴 사람 100명의 인피(人皮)를 당연히 요구하였다.

70:1.19 (785.2) 초기의 전쟁은 부족들 전체간의 싸움이었지만, 나중에는 두 부족 전체가 싸우는 대신에 그 부족들에게 소속된 두 개별존재가 결투를 벌였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경우처럼, 두 적군은 각자 자기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두 사람이 싸운 결과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기도 하였다.

70:1.20 (785.3) 전쟁에 있어서 처음으로 개선된 것은 죄수를 삼는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여자들이 전쟁 행위에서 제외된 것이었고, 그 후에는 비(非)전투원으로 인식되었다. 전쟁이 점점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됨에 따라서 군사적 특권계급과 상비군(常備軍) 형태가 곧 발전되게 되었다. 그러한 전사들은 여자와 교제하는 것이 일찍부터 금지되었고, 여자들은 이미 오래 전에 싸우는 일에서 제외되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언제나 그 군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돌보았으며 전투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충동하였다.

70:1.22 (785.4) 전쟁을 선포하는 실천 관행은 큰 진보를 대표하였다. 싸울 의사가 있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은 공명정대함이 나타나는 전조가 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서 “문명화된” 전쟁 규칙들이 점점 더 개발되게 되었다. 종교적인 장소 근처에서는 싸우지 않는 것이 아주 일찍부터 관습이 되었고, 나중에는 특정한 거룩한 날에는 싸우지 않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보호받을 권리가 일반적 개념이 되었다; 정치적인 망명자는 보호를 받았다.

70:1.22 (785.5) 그리하여 전쟁은 원시인 사냥으로부터 후대의 “문명화된” 국가들 간의 어느 정도 더 질서화 된 형태로 점차 진화되었다. 그러나 사회전체의 친선적 태도가 적대적 태도를 대치시키는 일은 매우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다.

제 2 장. 전쟁의 사회적 가치

70:2.1 (785.6) 지나간 시대에 있었던 격렬한 전쟁은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는 10,000년이 걸려야 발생할 수 있을 그러한 새로운 관념들의 채택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전쟁에서 이러한 특정한 이점들을 얻기 위하여 치려야하는 무시무시한 대가는, 사회가

일시적으로 후퇴하여 야만 상태에 던져지는 것이었다; 문명화된 이성이 퇴보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은 강력한 약이며, 매우 큰 대가를 치뤄야 하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이다; 종종 특정한 사회적 무질서들을 고치는 기능이 있지만, 그것은 때때로 환자를 죽이고, 사회를 파괴한다.

70:2.2 (785.7) 국가적인 방어를 위한 계속적인 필요성은 새롭고도 진보된 많은 사회적 조절들을 이룩하였다. 오늘날의 사회는, 처음에는 전적으로 군사적(軍事的)인 것이었고 지금도 전쟁의 덕분으로 형성된 무도회, 무리를 훈련시키는 초기 형태들 중의 하나에 신세를 진, 많은 유용한 혁신들에 의한 유익을 누리고 있다.

70:2.3 (785.8) 전쟁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지나간 문명화 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해 오고 있다:

70:2.4 (785.9) 1. 강요된 단련, 강제적인 협동.

70:2.5 (785.10) 2. 불굴의 마음과 용기를 높이 평가함.

70:2.6 (785.11) 3. 민족주의를 조성하고 육성시킴.

70:2.7 (785.12) 4. 약하고 부적당한 민족들을 도태시킴.

5. 원시적인 평등과 선택적으로 계급화 된 사회에 대한 환상을 약화시킴.

전쟁은 특정한 진화적이고 선택적인 가치를 갖고 있지만, 노예제도와 같은 것은 문명화가 서서히 진척됨에 따라서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다. 고대의 전쟁들로 말미암아 여행과 문화적 교류가 증진되었다; 이러한 목적들이 이제는 현대적 수송 그리고 통신 방법들에 의해서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의 전쟁들은 국가들을 강화시켰지만, 현대적 투쟁들은 개화된 문화를 붕괴시켰다. 고대의 전쟁은 다수의 열등한 민족들이 격감되는 결과를 낳았다; 현대적 충돌의 최종 결과는 가장 우수한 인간 혈통들의 선택적인 멸종이다. 초기의 전쟁들은 조직과 효율성을 증진시켰지만, 이제는 이것들이 현대 산업의 목적이 되었다. 지난 시대 동안 전쟁은 문명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종의 사회적 효소(酵素)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제 야망과 발명에 의해서 더 잘 달성된다. 고대의 전쟁은 전쟁의 하느님에 대한 개념을 뒷받침하였지만, 현대인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표현해 오고 있다. 전쟁은 과거에 가치 있는 많은 목적들을 만족시켰고, 문명의 건설에서

하나의 필요 불가결한 발판이 되어 왔지만, 그러나 급속하게 문화적 파산이 되어가고 있다.—전쟁을 원할 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끔찍한 손실과 비례하는, 사회적 이득에 대한 배당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만들어낼 여지가 없다.

70:2.10 (786.1) 의사들은 피를 흘림으로써 여러 가지 질병들을 고칠 수 있다고 한 때 믿었던 적이 있었으나, 그 후로 그들은 그 병들 대부분에 대한 보다 나은 치료법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피를 흘리는 전쟁 대신에, 나라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한 보다 나은 방법들을 발견하는 일이 확실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70:2.11 (786.2) 유란시아의 국가들은 민족적인 군사주의와 산업주의 사이에서 거대한 투쟁을 이미 시작하였으며, 이 투쟁은 목자-사냥꾼과 농부 사이에 있었던 오랜 세월 동안의 투쟁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만일 산업주의가 군사주의를 이기려면, 그것은 산업주의를 둘러싸고 있는 위험들을 피해야만 한다. 유란시아에서 싹트고 있는 산업의 위기들은 다음과 같다:

70:2.12 (786.3) 1. 물질주의를 향하는 강력한 풍조, 영적으로 눈이 멀어짐.

70:2.13 (786.4) 2. 재물의-힘을 경배, 가치의 왜곡.

70:2.14 (786.5) 3. 사치의 악, 문화적 미성숙.

70:2.15 (786.6) 4. 게으름의 점점 증가되는 위험, 봉사의 무감각

70:2.16 (786.7) 5. 바람직하지 않은 종족 관용의 성장, 생물학적 퇴보.

70:2.17 (786.8) 6. 표준화된 산업 노예화의 위험, 개인성 침체. 노동은 고상한 것이지만, 고역은 감각을 마비시킨다.

70:2.18 (786.9) 군사주의는 독재적이고 잔인—야만적—하다. 그것은 정복자들 속에서는 사회적 조직을 증진시키지만, 피정복자들은 집단성이 해체된다. 산업주의는 보다 문명화된 것이며, 독창력 제고(提高)와 개별주의 장려가 이루어지도록 진행되어야만 한다. 사회는 모든 면에서 기원성을 육성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70:2.19 (786.10) 전쟁을 찬양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 왔는지를 파악하여,

문명의 계속적인 진보를 위하여 그것을 대신해야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더욱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만일 그러한 충분한 대용품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70:2.20 (786.11) 사람은, 자신의 물질적인 행복을 위하여 평화가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속속들이 그리고 반복해서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인간 종족들의 자아-보존 반응들 중의 하나인 영원히 누적되는 감정들과 에너지들을 해방시키도록 고안된 집단적 충동을 주기적으로 폭발시키는 선천적인 성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회가 평화적인 대용물들을 현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결코 평화를 정상적인 생활 형태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70:2.21 (786.12) 그러나 현 시대에서도, 전쟁은 오만한 개별주의자들로 구성된 종족으로 하여금 크게 집중된 권한—우두머리 집행자—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체험적 훈련소로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구식 전쟁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인(巨人)을 영도자관계로 삼았지만, 현대의 전쟁은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는다. 영도자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회는 이제 평화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즉: 산업과 과학 그리고 사회적 성취를 이룩한 자들에게로
방향을 바꾸어야만 한다.

제 3 장. 초기의 인간 관계적-연합

70:3.1 (787.1) 가장 원시적인 사회에서는, 떠도는 무리밖에
없었고, 아이들조차도 그것의 공동 재산이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진화하는 가정이 떠도는 무리를
대신하였고, 반면에 씨족과 부족이 창발하여 사회 단위를
이루었다.

70:3.2 (787.2) 성(性)에 대한 갈망과 모성애가 가족을 형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정부 형태는 가족을 초월한
집단들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까지 출현하지 못하였다.
가족이 형성되기 전의 떠도는 집단 시대에는,
비공식적으로 선택된 개별존재들이 영도자관계 역할을
하였다. 아프리카의 부시먼 종족은 이러한 원시적 단계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자기 부족을 이끄는
우두머리가 없다.

70:3.3 (787.3) 혈통으로 묶인 가족들이 씨족으로 연합하였고;
나중에 이것이 진화되어 부족, 지역적인 공동체들을

이루게 되었다. 전쟁과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친족관계 씨족들 간의 부족 체제를 이루도록 강요하였지만, 이러한 초기의 원시적 집단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내부적 평화를 유지하면서 함께 묶일 수 있게 한 것은 상업과 무역이었다.

70:3.4 (787.4) 유란시아의 평화는, 평화에 대한 환상적인 계획의 온통 정서적인 궤변에 의해서보다는 국제 교역 체제들에 의해서 훨씬 더 증진될 것이다. 교역 관계는 언어의 발달에 의해서, 그리고 개선된 교통 방법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보다 발전된 수송 수단에 의해서 촉진되어 왔다.

70:3.5 (787.5) 공통 언어의 부재(不在)는 평화를 지키는 집단들의 성장을 항상 방해하였지만, 현대적 무역에 있어서는 돈이 보편적 언어가 되었다. 현대 사회는 주로 산업 시장에 의해서 결합된다.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는 공급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증강될 때 문명을 크게 증진시킨다.

70:3.6 (787.6) 초기 시대에 있어서 각 부족은 증가하는 두려움과 의심의 동심원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모든 낯선 자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그들을 노예로 만드는 일이 한 때의 관습이었다. 친구 관계에 대한 옛 관념은 씨족의 일원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였다; 씨족에 소속되면 죽은 뒤에 생존된다고 믿었다—영원한 삶에 대한 최초의 개념들 중의 하나였다.

70:3.7 (787.7) 서로의 피를 마심으로써 양자(養子) 결연이 이루어지는 의식을 행하였다. 어떤 집단들에서는 피를 마시는 대신에 침을 서로 나눴는데, 이것이 사교적 키스의 실천 관행의 고대 기원이다. 그리고 결혼이든지 양자 결연이든지, 관계적-연합을 이루는 모든 의식의 끝에는 항상 축제가 열렸다.

70:3.8 (787.8) 후대에는, 피를 섞은 붉은 포도주가 사용되었고, 결국에는 포도주만을 마심으로써 양자 결연 의식을 확인하였으며, 그것은 그 포도주 잔에 손을 댄으로써 승인을 표명하였고 그것을 다 비워지도록 마심으로써 완료되었다. 히브리인들은 이러한 양자 결연 의식으로부터 변형된 형태를 채택하였다. 그들의 아랍 조상들은 후보자로 하여금 부족 원주민의 생식기에 손을 얹고 맹세하도록 하였다. 히브리인들은 양자로 받아들여진 이방인을 형제우애로서 친절하게 대우하였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낯선 사람들을 너희 중에 태어난 사람처럼 대할 것이며, 너 자신처럼 그를 사랑해야 한다.”

70:3.9 (787.9) “손님과의 우정”은 잠시 동안 환대하는 관계였다. 방문하였던 손님이 떠날 때에는, 접시를 둘로 쪼개서 한 조각을 떠나는 친구에게 줌으로써 제삼자가 나중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적절한 소개장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였다. 손님들은 자기들의 여정과 모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빛을 갠 것이 관례였다. 옛 시대의 이야기꾼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냥이나 추수하는 시기 동안에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사회관례가 생기게 되었다.

70:3.10 (788.1) 최초의 평화 조약은 “피로 맺는 계약”이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두 부족들의 평화 사절들이 만나서 경의를 표한 후에 피가 흐를 때까지 피부를 찢었으며; 서로의 피를 빨아 마시면서 평화를 선언하였다.

70:3.11 (788.2) 가장 오래된 평화 사절단은, 한 때 자기들의 적이었던 사람들에게 성(性)적 충족을 주기 위해 선택한 처녀들을 거느린 대표단들로 구성되었는데, 전쟁의 충동을 제거하는 일에 성(性) 욕망이 이용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공경을 받은 부족은 그에 대한 답례로 방문하면서
처녀들을 선물로 주었다; 그 후부터 평화적 관계가
견고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곧 족장 가족들 간의 결혼이
허용되었다.

제 4 장. 씨족과 부족

70:4.1 (788.3) 최초의 평화 집단은 가족이었고, 그 다음에는
씨족, 부족,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국민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현대의 지역적인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
유란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아직도 전쟁 준비에 많은 돈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평화
집단들이 오래 전부터 국가들을 포용하면서 혈통에 의한
결속을 넘어 확대하여 왔다는 사실은 가장 고무적인
일이다.

70:4.2 (788.4) 씨족들은 부족 내에서 혈통으로 묶인
집단들이었으며, 그들은 다음과 같은 특정한 공통
이해관계를 소유하게 되었다:

70:4.3 (788.5) 1.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같음.

70:4.4 (788.6) 2. 동일한 종교적 토템을 모심.

70:4.5 (788.7) 3. 같은 사투리를 사용함.

70:4.6 (788.8) 4. 공동 거주지에서 생활함.

70:4.7 (788.9) 5. 동일한 적을 두려워 함.

70:4.8 (788.10) 6. 공통의 군사적 체험을 갖고 있음.

70:4.9 (788.11) 씨족의 우두머리들은 항상 부족장에게 복종하였다; 초기의 부족 정부는 씨족들이 느슨하게 연관된 것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부족 형태의 정부를 형성한 적이 없었다.

70:4.10 (788.12) 씨족의 평화 책임자들은 대개 모계를 통하여 지배하였고; 부족의 전쟁 책임자들은 부계를 통하여 형성되었다. 부족장과 초기 왕의 의회는 씨족장들로 구성되었는데, 매 년 몇 차례씩 그들을 왕의 현존 앞으로 소집시키는 것이 관례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왕은 그들을 감시할 수 있었고 그들의 협조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었다. 씨족들은 지역적인 자아-관리를 통하여 유익한 효과가 있게 하기는 하였지만, 큰 규모의 강력한 국가로 자라는 것을 크게 연기시켰다.

제 5 장. 정부의 시작

70:5.1 (788.7) 인간의 모든 제도들은 최초의 기원을 갖기 마련이며, 시민 정부는 결혼과 산업 그리고 종교와 마찬가지로 진보적인 진화의 산물이다. 초기의 씨족들과 원시적 부족들로부터 인간 정부의 연속적인 체제들이 점차적으로 발전되었는데 그 체제들은 20세기 중반부의 특징을 이룬 사회와 시민의 규정 형태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변천을 거듭하였다.

70:5.2 (788.8) 가족 단위들이 점차적으로 창발함에 따라 정부도 씨족 체제, 혈통이 같은 가족들의 집단화를 통하여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첫 번째 실제 정부로서의 몸체는 원로 회의회였다. 이 규제적인 집단은, 남달리 유능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탁월함을 보여주었던 나이든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지혜와 체험은, 심지어 야만인 속에서도 일찍부터 높이 인정을 받았으며, 원로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나이 든 몇몇 사람들에 의한 과두정치의 이런 통치권은 점차 족장 관념으로 발전되었다.

70:5.3 (789.1) 원로들의 초기 회의회에서는, 모든 정부 차원의 기능들; 행정과 입법과 사법기능의 잠재성이 존재했다.

협의회가 당시의 사회관례에 대한 해석을 내릴 때, 그것은 법정의 역할을 하였고;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관례를 세울 때에는, 입법부와 같았다; 그러한 판결과 법규가 강요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부였다. 그 협의회 의장은, 후대의 부족장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70:5.4 (788.10) 어떤 부족들의 협의회에는 여성 회원들도 있었고, 때때로 여성이 다스리는 부족들도 많이 있었다. 적색 인종의 어떤 부족들은 "7인 협의회"의 만장일치에 의한 통치를 따르는 오나모나론톤의 가르침을 유지하였다.

70:5.5 (788.11) 논쟁하는 사회에 의해서는 평화는 물론 전쟁도 수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류가 깨닫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원시적인 "상담"은 거의 성공하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여러 명의 씨족장들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무리는 한 사람의 강력한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군대를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배웠던 것이다. 전쟁은 항상 왕을-만드는 자가 되어왔다.

70:5.6 (788.12) 처음에는 전쟁을 담당하는 우두머리들이 오직 군사적 봉사만을 위하여 선정되었고, 평화 시에는 그들의 권한의 일부가 해제되곤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의

의무는 더욱 사회적 본성을 가졌다. 그러나 그들은 평화로운 기간 동안에도 권한을 갖는 경향이 점점 더 많아져서, 전쟁이 끝난 후에도 다음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통치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후 오래지 않아서 다음 전쟁이 이어지도록 주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초기에 전쟁을 주관한 사람들은 평화를 좋아하지 않았다.

70:5.7 (788.13) 후대에 이르러서는 군사적 봉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약간의 우두머리들이 선정되었는데, 보기 드문 체격이나 뛰어난 개인 능력에 의해서 선택되었다. 적색 인종은 두 가지 종류의 우두머리들—족장 또는 화평케 하는 두목들과, 전쟁을 위한 세습적으로 내려오는 두목들—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화평케 하는 통치자들은 재판관과 선생을 겸하였다.

70:5.8 (788.14) 초기의 어떤 공동체들은 주술사들에 의해서 통치되기도 하였는데, 그들은 종종 두목들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한 사람이 사제와 의사 그리고 우두머리 집행자 역할을 하곤 하였다. 초기의 호화로운 휘장들이 처음에는

성직자 복장의 상징 또는 표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였다.

70:5.9 (788.15) 그리고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서 정부의 행정 부문이 출현하게 되었다. 씨족과 부족의 협의회는 고문 자격으로 계속 유지되었고, 후대에 나타난 입법부와 사법부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 아프리카에서는 이러한 원시적 정부의 모든 형태들이 여러 부족들 속에서 실재로 존속되고 있다.

제 6 장. 군주제 정부

70:6.1 (789.8) 효과적인 국가 통치는 충분한 집행 권한을 가진 한 우두머리의 도착과 함께 비로소 온 것이다. 사람은, 관념을 자질로서 부여함으로써가 아니라, 개인성에게 힘을 수여함으로써만 효과적인 정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70:6.2 (789.9) 통치자의 권한은 가족의 권위 또는 재산에 대한 관념으로부터 형성되었다. 족장의 권한이 실제적인 왕(王)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그는 때로 "자기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렸다. 나중에는, 영웅들로부터 왕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리고 훨씬 후대에는 통치 권한이

세습되었는데, 왕이 신성한 기원을 갖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70:6.3 (789.10) 세습되는 왕권은, 전에 체험하였던, 한 왕이 죽은 때로부터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파괴를 일삼는 무정부적인 상태를 겪지 않도록 해주었다. 가족은 생태학적인 우두머리를 가졌고; 씨족은 선천적인 영도자를 선출하였다; 부족과 후대의 국가는 선천적인 영도자를 갖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최고-왕권의 세습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들 중의 하나였다. 왕가(王家)와 귀족에 대한 관념은 씨족들에게 있었던 "이름 소유권"에 대한 사회관례에 기초를 두기도 하였다.

70:6.4 (790.1) 왕권의 계승은 결국에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왕의 혈통이 칼리가스티아 영주의 물질화된 참모진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왕들은 미신적 숭배를 받는 개인성들이 되었고 지나칠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는데, 특별한 형태의 말투가 왕실(王室) 어법으로 사용되었다. 심지어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왕과 접촉함으로써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으며, 유란시아의

어떤 민족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통치자가 신성한 기원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70:6.5 (790.2) 일찍이 미신적 숭배의 대상이었던 왕은 흔히
격리된 생활을 하였다; 너무 신성하게 여겨진 나머지, 축제
기간과 거룩한 날들을 제외하고는 만날 수 없었다. 대개
그를 개인이-아닌 것으로 하려고 대리자가 선출되었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수상(首相)이 기원되었다. 내각의 최초
관원은 음식을 관리하는 자였고, 다른 직책들이 곧 뒤따라
생겨났다. 관료들은 교역과 종교를 맡아볼 수 있도록
대리자들을 선임하였다; 내각 제도의 발전은 집행
권한자들의 탈(脫)개인성구현을 향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초기의 왕을 보좌하던 이 사람들은
귀족으로 선택되었고, 왕의 아내는 여왕의 존엄성을 점점
더 갖추게 되어 여자들이 더욱 존중되게 되었다.

70:6.6 (790.3) 사악한 통치자들은 독약을 발견함으로써 엄청난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초기 궁정의 마술은 악마적인
것이었고; 왕에게 대항하는 자들은 곧 죽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악랄한 폭군도 어느 정도의 제한을 받았는데, 적어도
암살에 대한 공포가 항상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억제시켰던 것이다. 주술사들과 마법사들 그리고 사제들은 왕에게 항상 상당한 견제 세력이 되었다. 나중에는 땅을 소유한 자들, 귀족들이 억제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때때로 씨족들과 부족들이 단순한 의도로 봉기하여 자기들의 독재자와 폭군을 타도하기도 하였다. 폐위된 통치자들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자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도 하였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특별한 상황에 봉착하였을 때 자살을 기도하는 고대 사회의 유행이 기원되었다.

제 7 장. 원시적 단체들과 비밀 공동체들

70:7.1 (790.4) 혈연 친족관계는 최초의 사회적 집단들을 확정하였다; 관계적-연합을 통하여 친족관계의 씨족이 커지게 되었다. 그 다음 단계는 씨족간의 결혼으로 집단이 커지는 것이었고, 그 결과로 생긴 복합적인 부족은 최초의 참된 정치적 주체였다. 사회적 발전에 있어서 그 다음 단계는 종교 예배종파들과 정치 단체들의 출현이었다. 처음에는 이것들이 비밀 공동체로 결성되었고, 기원적으로는 전적으로 종교적인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규제를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것들이 남자들의 단체였고; 나중에는 여자들의 모임도 나타났다. 이윽고

그것들은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즉: 사회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신비적인 것이었다.

70:7.2 (790.5) 이러한 공동체들이 비밀리에 이루어진 이유가 많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70:7.3 (790.6) 1. 어떤 금기에 대한 위반으로 말미암아 통치자들의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염려.

70:7.4 (790.7) 2. 소수파의 종교 예식을 실천하기 위하여.

70:7.5 (790.8) 3. 소중한 "영"을 보존하거나 비밀을 교환할 목적으로.

70:7.6 (790.9) 4. 어떤 특별한 마법이나 마술을 즐기기 위하여.

70:7.7 (790.10) 이러한 공동체들의 강력한 비밀 엄수는, 모든 회원들로 하여금 그 부족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신비적인 힘을 행사하도록 만들었다. 비밀 엄수는 허영심을 자극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에 가입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특권을 누리는 것이었다. 가입된 후에는 소년들이 어른들과 함께 사냥을 나갈 수 있는 반면; 그 전에는 여자들과 함께 식물을 채집해야만 하였다. 그리고 사춘기에 거치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함으로써 남자들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함께 나약한 자로 취급받는 것은 최극 굴욕, 부족한 망신이었다. 그 외에도 가입되지 못한 자는 결혼이 허용되지 않았다.

70:7.8 (791.1) 원시 민족들은 청년기에 도달한 자녀들에게 매우 일찍부터 성욕(性慾)을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사춘기에서부터 결혼할 때까지 남자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관례가 되었는데, 그들의 교육과 훈련은 남자들의 비밀 공동체에게 위임되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의 주요 기능들 중의 하나는 청년기에 도달한 젊은 남자들을 통제함으로써 사생아의 탄생을 방지하였다.

70:7.9 (791.2) 이러한 남자 단체들이 다른 부족의 여자들을 이용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함으로써 상업화된 매춘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집단들은 방종한 성관계는 꽤 없는 편이었다.

70:7.10 (791.3) 사춘기의 가입 의식은 대개 5년 동안 계속되었다. 자아-고문과 고통스럽게 상처를 내는 행위가 이 의식에 포함되었다. 할례가 이들 비밀 형제우애관계들 중의 하나를 개시하는 의식으로서 처음으로 실천되었다.

부족의 표식을 사춘기 가입식의 일부로 피부 위에 새겨 넣었다; 문신(文身)은 그러한 회원 상징의 표시에서 기원되었다. 그와 같은 심한 고통은, 오랫동안의 궁핍과 함께, 그 젊은이들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삶에 대한 실체감과 피할 수 없는 결핍을 그들의 가슴에 새겨주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은 후대에 나타난 운동 경기들과 육체적 경연에 의해서 보다 훌륭하게 성취되었다.

70:7.11 (791.4) 그러나 비밀 공동체들은 청년들의 도덕을 증진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었는데; 사춘기 예식의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는 그가 다른 남자들의 아내들에게 간섭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 소년에게 심어주는 것이었다.

70:7.12 (791.5) 이러한 여러 해 동안의 종교적 수양과 단련이 있는 후에 그리고 결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젊은이들은 대개 짧은 기간 동안의 한가한 자유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뒤에는 다시 돌아와 결혼하였고 부족의 금기들을 평생토록 복종하기로 맹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고대의 관습은 “젊은 혈기로 난봉부리기”라는

어리석은 똥단지같은 생각으로 현대까지 계속 전해 내려왔다.

70:7.13 (791.6) 후대의 많은 부족들은 여인들의 비밀 단체를 허용하였는데, 그렇게 한 것은 장성한 처녀들로 하여금 아내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소녀들은 가입식이 있는 후에 결혼할 자격이 주어졌고 "신부 보여주기", 당대의 성인 축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결혼에 반대하기로 서약한 여자들 계층이 일찍부터 생겼다.

70:7.14 (791.7) 결혼하지 못한 남자들의 집단과 결혼하지 못한 여자들의 집단이 각각 독립적으로 조직되자, 마침내 공개적인 단체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 공동체들은 실제로 최초의 학교에 해당되었다. 그리고 남자들과 여자들 집단들이 종종 서로를 괴롭힌 반면, 진보적인 어떤 부족들은 달라마시아의 선생들과 접촉한 후에 남자와 여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였다.

70:7.15 (791.8) 비밀 공동체들은 주로 그들의 가입식의 신비적인 성격에 의해서 사회 특권계급들이 형성되도록 기여하였다. 이 공동체의 회원들은 먼저 가면을 쓰고,

애도하는 의식—조상 경배—현장으로부터 기이한 존재들이 놀라서 도망가게 하였다. 이러한 종교예식이 나중에는, 귀신들이 나타난다고 여기는 사이비 강신회(降神會)로 발전되었다. "새로운 탄생"을 내세우는 고대의 공동체들은 신호들을 사용하였으며 특별한 비밀 언어를 이용하였다; 특정한 음식들과 음료수들을 거부하였다. 그들은 밤의 경찰로 활동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였다.

70:7.16 (792.1) 모든 비밀 관계적-연합들은 서약을 부과하고, 자신감을 강요하였으며, 비밀을 지키도록 가르쳤다. 이러한 명령은 단원들을 위압하고 통제하였다; 또한 그들은 경비를 맡는 공동체로 활약했으며, 자체체별 규칙을 실천하였다. 그들은 부족 간의 전쟁이 발생할 때에는 첫 번째 정탐꾼이 되었고 평화 시에는 첫 번째 비밀경찰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비양심적인 왕들이 좌불안석에 앉게 하였다. 그들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왕들은 그들 자신의 비밀경찰을 양성하였다.

70:7.17 (792.2) 이 공동체로 인하여 최초의 정치적 정당들이 출현하였다. 최초의 정당 정부는 "강한 편"과 "약한 편"의

대결로 이루어졌다. 고대(古代)에는 오로지 내란이 있는 다음에만 관리-행정의 변화가 있었고, 그것은 약한 편이 강하게 되었음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었다.

70:7.18 (792.3) 이 단체들은 빛을 독촉하기 위하여 상인들에게 고용되었고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통치자들에게 고용되었다. 세금 징수는 오랫동안의 투쟁을 겪었는데, 가장 오래된 형태는 십일조, 사냥한 것과 약탈품의 10분의 1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세금은 기원적으로 왕의 집을 유지하기 위하여 징수되었지만, 신전 예배봉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물 하도록 속임수를 써서 징수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70:7.19 (792.4) 이윽고 이러한 비밀 관계적-연합들이 점점 커져서 최초의 자선 단체들을 이루었고 나중에는 초기의 종교적 공동체—교회의 선구자—로 진화되었다. 이 공동체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마침내 여러 부족들을 참여시키게 되어, 최초의 국제적 형제우애관계가 되었다.

제 8 장. 사회 등급

70:8.1 (792.5) 인간 존재들의 정신적 육체적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사회 등급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사회적 계층이

없는 유일한 세계는 가장 원시적인 세계와 가장 진보된 세계이다. 문명이 태동될 때에는 아직 사회적 계층의 분화(分化)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반면에 빛과 생명의 단계에 도달한 세계는, 진화의 중간 단계들의 특징인 이와 같은 인류 구분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70:8.2 (792.6) 사회가 야만적인 상태에서 미개한 상태로 발전되면서, 인간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이유들 때문에 여러 계층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었다:

70:8.3 (792.7) 1. 자연적—접촉, 친족관계, 결혼; 최초의 사회적 차이는 성(性), 나이, 혈통—우두머리와의 친족 관계—에 기초를 두었다.

70:8.4 (792.8) 2. 개인적—능력, 인내심, 기술, 강인함을 높이 평가함; 언어 능력, 지식, 그리고 일반적인 지성에 대한 인식이 곧 뒤따랐음.

70:8.5 (792.9) 3. 우연—전쟁과 이주(移住)로 말미암아 인간 집단들의 분리가 이루어짐. 계층의 진화는 정복, 승리자와 피정복자의 관계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동시에

노예 제도는 자유인과 노예로 나누는 최초의 전반적인 사회 분화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70:8.6 (792.10) 4. 경제적—부자와 가난한 자. 재산과 노예의 소유는 사회의 등급을 결정하는 유전적인 기초였다.

70:8.7 (792.11) 5. 지리적—정착된 곳이 도시인지 아니면 시골인지에 의해서 등급이 결정됨. 도시와 시골은, 목자-농업인과 상인-산업인이 구분되도록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그들의 관점과 태도가 서로 틀려지게 하였다.

70:8.8 (792.12) 6. 사회적—서로 다른 집단들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대중적인 평가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계급들이 형성됨. 이러한 종류에 속하는 최초의 분화(分化)들 중에는, 사제-선생, 통치자-전사, 자본가-상인, 일반 노동자, 그리고 노예 사이의 구분이 있었다.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본가 계급에 들어오도록 선택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노예는 결코 자본가가 되지 못하였다.

70:8.9 (793.1) 7. 직업적—직업이 세분화되자, 그들은 배타적인 계급들과 조합들을 형성하려고 하였다. 노동자들은 세 가지로 구분되었는데: 주술사들을 포함한 전문적인

계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있었고, 기술이 없는 노동자들이 그 뒤에 나타났다.

70:8.10 (793.2) 8. 종교적—초기의 예배예배종파들은 씨족과 부족 내에서 자신들만의 계급을 형성하였고, 사제들의 경건과 신비주의는 그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별도의 사회 집단으로 영속하게 하였다.

70:8.11 (793.3) 9. 인종적—하나의 일정한 국가 또는 지역 단위 안에 둘 이상의 인종들의 현존은 대개 색깔에 의한 계급이 형성된다. 인도의 기원적 계급 제도는, 초기 이집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색깔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70:8.12 (793.4) 10. 나이—어린이와 성인. 부족민들 중에서 소년은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감독을 받았으며, 반면에 소녀는 결혼할 때까지 어머니의 보호를 받았다.

70:8.13 (793.5) 진화하는 문명에게는 유연하고 변동하는 사회적 등급들이 필요불가결 하지만, 등급이 계층으로 바뀌면, 사회적 계급이 굳어지면, 사회적 안정성의 증진은 개인적 주도를 감소함으로서 얻어진다. 사회적 계층은 사람이

산업사회에서 자리를 잡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동시에 개별존재의 발전을 가차 없이 줄이고 사회적 협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한다.

70:8.14 (793.6) 공동체 속에서의 등급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왔는데, 사람이 다음과 같은 진보하는 문명의 생물학적이고 지적이며 영적인 자원들을 재치 있게 처리함으로써 그것들의 진화적 소멸을 점차적으로 이룩할 때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다:

70:8.15 (793.7) 1. 인종적 혈통의 생물학적 쇄신—열등한 인간 혈통을 선택적으로 도태시킴. 이것은 많은 필사자적 불평등을 근절시키게 될 것이다.

70:8.16 (793.8) 2. 그러한 생물학적 개선을 통하여 발생될 향상된 지적(知的) 힘을 교육적으로 훈련시킴.

70:8.17 (793.9) 3. 필사자들이 서로 친족관계와 형제신분을 이루는 분위기를 종교적으로 활성화시킴.

70:8.18 (793.10) 그러나 이러한 표준들은, 비록 문화적 진보를 촉진시키는 이러한 요소들을 지능적이고 지혜롭게 그리고 인내하며 조종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개선이 즉시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여도, 수천 년의 기간이 흐른 뒤에야 그것들의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종교는 혼란으로부터 문명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이지만, 견고하고 정상적인 상속 체제에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견고하고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받침대를 떠나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제 9 장. 인간의 권리

70:9.1 (793.11) 자연은 살 수 있는 세계와 생명 이외에는 사람에게 아무런 권리도 주지 않는다. 무장하지 않은 사람이 원시림 속에서 굶주린 호랑이와 마주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봄으로써 추론할 수 있듯이, 자연은 살 권리조차도 주지 않는다. 사회가 사람에게 주는 우선적인 선물은 안전이다.

70:9.2 (793.12) 공동체는 점진적으로 그 권리들을 요구하였는데, 오늘날의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70:9.3 (793.13) 1. 양식 공급의 보장.

70:9.4 (793.14) 2. 군사적 방어—전쟁 대비를 통한 안전.

70:9.5 (793.15) 3. 내부적 평화 유지—개인적인 폭력과 사회적인 무질서 예방.

70:9.6 (794.1) 4. 성(性) 통제—결혼, 가족 제도.

70:9.7 (794.2) 5. 재산—소유권.

70:9.8 (794.3) 6. 개별적 그리고 집단적 경쟁의 육성.

70:9.9 (794.4) 7. 청소년 교육과 훈련을 위한 설비.

70:9.10 (794.5) 8. 무역과 상업의 증진—산업 개발.

70:9.11 (794.6) 9. 노동 조건과 보상에 대한 개선.

70:9.12 (794.7) 10 이와 같은 다른 모든 사회적 활동들이 영적으로 자극을 받음으로써 고양(高揚)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교적 실천 관행들의 자유 보장.

70:9.13 (794.8) 권리들이 출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었을 때, 자연적 권리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권리들은 실제로 자연적인 것이 아니며; 온전히 사회적인 것이다. 그것들은 상대적이고 항상 변화하는데, 경기 규칙과 다름이 없다—인간적 경쟁의 항상 변화하는 현상들을 지배하는 관계들의 조절이 인정됨.

70:9.14 (794.9) 한 시대에 권리로 간주되었던 것이 다른 세대에서는 그렇게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수많은 결함이 있고 타락한 것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20세기 문명을 방해할 만큼 어떤 천부적 권리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 시대의 공동체, 사회관례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것이다.

70:9.15 (794.10) 유럽의 중세 시대에는 인간의 권리가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그 때에는 각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었고, 권리는 국가 또는 교회에 의해서 수여된 특권 또는 은혜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실수에 반감을 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상태로 태어난다고 믿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시 실수하는 것이다.

70:9.16 (794.11) 약하고 열등한 사람들은 항상 동등한 권리를 주장한다; 국가가 강한 자들과 우월한 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강제적으로 공급하도록 항상 집요하게 요구하고, 그밖에도 그들 자신의 무관심과 게으름 때문에 발생한 그러한 결핍을 보충하도록 요구한다.

70:9.17 (794.12) 그러나 이러한 평등 관념은 문명의 산물이다; 평등은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문화조차도 스스로 그 안에 들어있는 바로 그 사람들의 불평등한 수용능력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의 선천적인 불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가상되어진 자연본능적 평등을 갑작스럽고 비진화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문명화된 사람을 원시 시대의 거칠고 험한 관습으로 신속하게 내동댕이 칠 것이다. 사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권리를 제공할 수 없지만, 각자의 서로 다양하게 지니는 권리를 공정하고 동등하게 관리-운영하기를 약속할 수 있다. 자연본성의 아이에게 자아-유지를 추구하고, 자아-영속에 참여하며, 그러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의 자아-충족을 즐길 수 있는, 곧 인간 행복을 구성하는 모든 세 가지의 총합을 위한, 공정하고 평화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회가 할 일이며 의무이다.

제 10 장. 공의(公義)의 진화

70:10.1 (794.13) 자연본능적 공의는 사람이 만든 이론이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 자연본능에서, 공의는 순전히 이론적인 것이며, 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자연이 한

가지—원인에 대한 결과의 필연적인 일치성—공의를 제공하고는 있다.

70:10.2 (794.14) 공의는, 사람이 착상하는 바와 같이, 사람이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점차적으로 진화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공의의 개념은 영-자질로서 부여된 마음 안에서는 잘 구성될 수 있지만, 그러나 공간 세계에서는 충분히-발달된 실존으로서 솟아나지 않는다.

70:10.3 (794.15) 원시인은 모든 현상을 개인에게 그 원인을 돌렸다. 사람이 죽게 되면 미개인들은 무엇이 그를 죽였는가를 생각하는 대신 누가 죽였는가를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고, 죄에 대한 벌을 부과하면서 범죄자의 동기는 전혀 무시되었다; 심판은 입혀진 상처에 따라서 내려졌다.

70:10.4 (795.1) 최초의 원시 사회에서는 여론이 직접적으로 작용되었으므로, 법관이 필요하지 않았다. 원시적인 생활 속에는 사생활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의 이웃들은 그의 행위성에 대해 책임을 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개인적인 관련사들을 살살이 살펴볼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사회는, 그 집단에 소속된 자들이 각 개별존재의

행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통제해야만 한다는 이론 위에서 규제되었다.

70:10.5 (795.2) 귀신들이 주술사들과 사제들을 통하여 공의(公義)를 실시한다는 믿음이 매우 일찍부터 존재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이 계층들이 최초의 범죄 탐지자와 법관들이 되게 되었다. 그들이 범죄를 탐지하는 초기의 방법은 독약과 불 그리고 고통의 시련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미개한 이들 시련을 통한 재판들은 중재에서의 미숙한 기법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논쟁을 정당하게 해결한 필요가 없었다. 예를 들자면: 독약이 행정-처분되었을 때, 피의자가 그것을 토해내면, 그는 무죄였다.

70:10.6 (795.3) 구약 성경에 이러한 시죄법들 중의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부부간의 죄를 시험하는 방법이었다. 만일 남자가 자기 아내의 비행(非行)을 의심하게 되면, 그녀를 사제에게로 데려가서 자기가 의심하는 바를 말하였고, 그 후에 사제는 성전 바닥의 먼지와 거룩한 물로 만들어진 음료수를 준비하였다. 험악한 저주를 퍼부으면서 적당한 예식을 치른 후에, 고소된 그 아내로 하여금 더러운 그 음료수를 마시게 하였다. 만일 그

여자에게 죄가 있으면, “저주를 임하게 하는 그 물이 그 여자의 속으로 들어가서 쓴맛을 내고, 내장이 부풀어 오르며, 허벅다리가 썩게 되고, 그 여자는 자기 민족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만일, 어떤 계기로든지, 그 여인이 이러한 더러운 물을 마신 후에 육체적인 질병의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 그녀의 남편이 질투심으로 고소하였던 죄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70:10.7 (795.4) 범죄를 감지하는 이러한 잔인한 실천들은 진화하는 거의 모든 부족들에 의해서 한동안 사용되었다. 두 사람이 벌리는 결투는 신성에 의한 재판이 현대까지 생존한 것이다.

70:10.8 (795.5) 히브리인들과 반(半)문명화된 부족들이 공의(公義)로운 행정-처분을 실천하기 위해 그러한 원시적인 기법을 3,000년 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것이 못되지만, 수집된 종교적 문서들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와 같은 야만적인 유물을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그 후에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는 사실은 정말로 가장 놀라운 일이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의심스러운 부부간의 부정행위를 탐지하고 판결하는

방법에 관하여 그러한 부당한 가르침을 필사 사람에게 주는 신성한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70:10.9 (795.6) 공동체는 일찍부터 보복하는 태도; 눈에는 눈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주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진화하는 부족들 전체는 피로 보복하는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였다. 복수가 원시적 삶의 목적이 되었지만, 종교는 이러한 초기의 부족적 실천 관행들을 크게 변경시켰다. 계시된 종교의 선생들은, “복수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말을 항상 선포하였다. 고대에 자행되었던 복수를 위한 살인은, 불문율을 핑계 삼아 저지르는 지금-현재의 살해와는 전혀 다르다.

70:10.10 (795.7) 자살은 보복을 위한 비정한 방법이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생전에 직접 보복을 할 수 없게 되면, 귀신이 되어 다시 돌아와 자기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간직하면서 죽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매우 일반화된 이후로는, 원수의 문지방 위에서 자결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은 흔히 상대방을 굴복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였다. 원시인은 생명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사소한 일로 자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달라마시아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러한 관습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반면에 최근에 이르러서는 한가함, 안락함, 종교 그리고 철학이 연합해 오면서 삶을 더욱 감미롭고 매력 있게 만들었다. 아무튼, 단식투쟁은 고대의 이러한 복수방법의 현대적 형태이다.

70:10.11 (796.1) 진보된 부족적 법이 가장 일찍 공식화된 것들 중의 하나는, 피를 흘리는 불화를 부족의 일로 삼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이상한 이야기이지만, 그 당시에도 남자가 자기 아내를 죽였을 경우 그녀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면 아무 벌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아무튼 오늘날의 에스키모인들에게는, 범죄에 대하여, 심지어는 살인을 한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릇된 일을 당한 가족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지고 실시된다.

70:10.12 (796.2) 또 다른 진보는 금기들을 어겼을 경우에 대한 벌금 부과, 형벌에 대한 규칙이였다. 이러한 벌금은 최초의 공공 재산을 형성하였다. "피 값"을 지불하는 실천 관행

역시 피로 갚는 복수 대신으로 성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손해는 대개 여자들 또는 가족으로 갚았다; 실재적인 벌금, 범죄에 대한 형벌 대신에 화폐로 갚는 일은 훨씬 후대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형벌에 대한 관념이 근본적으로 보상으로 바뀐 이후부터, 인간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배상금으로 지불될 수 있는 가치를 갖게 되었다. 히브리인들은 피 값을 지불하는 실천 관행을 처음으로 폐지한 민족이었다. 모세는 "죽을 죄를 지은 살인자는 그의 생명 대신에 배상금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그를 죽여야만 한다."고 그들에게 가르쳤다.

70:10.13 (796.3) 그리하여 공의(公義)에 대한 책임이 처음에는 가족에게, 그 다음에는 씨족에게, 그리고 후대에는 부족에게 부과되었다. 복수하는 일이 사적인 혈통 집단들로부터 이양되어 사회적인 집단, 국가의 손에 넘겨진 때로부터 참된 공의(公義)의 행정-처분이 시작되었다.

70:10.14 (796.4) 산 채로 화형 시키는 형벌이 한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함무라비와 모세를 포함한 고대의 많은 통치자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으며, 모세는

여러 가지 범죄들, 특히 성(性) 본성이 나쁜 자들은 반드시 화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만일 “사제의 딸”이나 다른 인도하는 시민의 딸이 대중을 상대로 매춘을 하면, “그 여자를 불로 태우는 것”이 히브리 실천 관행이었다.

70:10.15 (796.5) 반역죄—자기 부족의 연관-동료들을 “팔아-넘기거나” 배반하는—는 첫째가는 최고의 범죄였다. 가축을 훔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즉결 처형으로 다스려졌으며, 심지어는 최근에도 말을 훔치는 사람에게 비슷한 형벌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범죄를 막는 일에 있어서 형벌의 혹독함이 그것의 확실성과 신속성보다 별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70:10.16 (796.6) 사회가 범죄를 응징하지 못하면, 집단 분노는 일반적으로 집단응징 법을 저절로 강력히 옹호하게 된다; 성역에 대한 규정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집단 분노를 벗어나는 수단이 되었다. 집단응징과 결투는 사적인 배상을 국가에게 맡기지 않으려는 개별존재의 저항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 11 장. 법과 법정

새벽에 밤과 낮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관례와 법 사이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회관례는 발달 과정에 있는 법과 치안 규정들이다. 오랫동안의 형성 과정이 지나면, 모호하였던 사회관례가 정확한 법과 명확한 규정들 그리고 잘-정의된 사회적 풍습들로 구체화된다.

법은 언제나 처음에는 부정적이고 금지적이지만; 문명이 진보하게 됨에 따라 점점 더 긍정적이고 지향적(指向的)이 된다. 초기의 공동체는 부정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함으로써 삶의 권리를 개별존재에게 부여하였다. 개별존재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들과 해방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해방의 삭감을 내포하였고, 이것은 원시적 법인 금기에 의해서 효력이 발휘되었다. 금기에 대한 모든 관념은 선천적으로 부정적인데, 왜냐하면 원시 공동체가 그 체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부정적이었고, 초기에는 공의(公義)의 행정-처분이 금기들의 강요에 의존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원적으로 이러한 법들은 오직 자기 부족민에게만 적용되었으며,

이방인들을 취급할 때에는 다른 윤리 규범을 적용하였던 후대의 히브리인들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70:11.3 (797.1) 증언을 더욱 진실 되게 만들기 위하여 달라마시아의 시대부터 맹세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러한 맹세는 자신에 대한 저주를 선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전에는 어떤 개별존재도 자기가 출생된 집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70:11.4 (797.2) 범죄는 부족의 사회관례를 범하는 것이었고, 죄는 귀신의 지지를 받는 금기들을 어기는 것이었으며, 범죄와 죄를 분리시키지 못함으로써 기인된 오랫동안의 혼란이 있었다.

70:11.5 (797.3) 자아-이익이 죽이는 것에 대해 금기를 확립했고, 공동체는 그것을 전통적인 사회관례로 정당화 시켰고, 반면에 종교는 그 관습을 도덕적 법으로 신성화 시켰으며, 그리하여 세 가지 전체의 상호 작용으로 인간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종교적인 상태가 되었다. 공동체는, 종교의 지지를 받는 권리들을 갖지 못하였던 초기 시대 동안에는 계속 뭉쳐있지 못하였다; 진화하는 오랜 세월 동안 미신이 도덕과 사회적 경찰력의 역할을 하였다. 모든 고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통적인 법, 금기들이 하느님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조상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하였다.

70:11.6 (797.4) 법은 오랜 세월의 인간 체험, 결정화되고 또 정당하다고 공인된 여론을 성문화시킨 것이다. 사회관례는 누적된 체험으로 이루어진 기본 자료였는데, 통치자들은 나중에 그것으로부터 성문법을 구체화시켰다. 고대의 재판관은 적용할 법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가 결정을 내릴 때에는 다만 “그것이 관습이다”라고 말할 뿐이었다.

70:11.7 (797.5) 법정의 결정들 중에서 판례를 참조하는 것은 재판관이 공동체의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서 성문화된 법을 적용시키려고 노력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통의 연속성에 대한 깊은 인상과 병합된 사회적 상황을 바꾸도록 진보적으로 조화시킬 준비를 한다.

70:11.8 (797.6) 재산 분쟁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루어졌다:

70:11.9 (797.7) 1. 분쟁이 일어난 재물을 파괴시킴으로써.

70:11.10 (797.8) 2. 무력에 의해서—분쟁자들이 결투로 해결함.

70:11.11 (797.9) 3. 중재에 의해서—제삼자(第三者)가 결정함.

70:11.12 (797.10) 4. 원로에게 탄원함으로써—나중에 법정에서 탄원함.

70:11.13 (797.11) 초심 법원은 주먹다짐으로 대항하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것이었고, 재판관은 단순히 시합을 속행시키는 심판에 불과하였다. 그들은 그 싸움이 규정된 규칙에 의거하여 수행되도록 주선하였다. 법정에서의 투쟁이 시작되면, 당사자들은 어느 한 편의 승리로 끝나게 될 때를 대비하여 각각 재판관에게 비용과 벌금을 제출하였다. “실력이 정의로 통하는 상태였다.” 그 후에는 육체적인 싸움 대신에 언쟁으로 대치되었다.

70:11.14 (797.12) 원시적인 공의(公義)에 대한 전반적 관념은, 공정하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싸움이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여 대중의 무질서와 사적(私的)인 폭력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시인은 오늘날 불공정으로 간주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분개하는 것은 아니었다; 힘을 가진 자가 그것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명의 지위는 그 법정의

철저함과 공정함에 의해서 그리고 그 재판관의 고결한-
순수성에 의해서 매우 정확하게 결정된다.

제 12 장. 시민 권한의 배분

70:12.1 (797.13) 정부의 진화 안에서 가장 큰 투쟁은 힘의 집중과
관계되어왔다. 우주 행정-관리자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 속에 있는 진화하는 민족들이, 잘-조화-협동된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부서들 사이에 적당한
힘의 균형이 유지될 때, 거주되는 세계들 위에 있는
진보적인 민족들이 시민 정부의 대표자 유형의 의해서
가장 잘 규제된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 배워 왔다.

70:12.2 (798.1) 원시적인 권한이 힘, 육체적 힘을 바탕으로 하였던
반면, 이상적인 정부는 능력에 바탕을 두고 영도자관계가
선정되는 대표자 체제이지만, 야만적인 시대에는
한결같이 너무 많은 전쟁 때문에 대표자로 구성된 정부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권한의 분할과 합일
사이에 있었던 오랫동안의 갈등 속에서 독재자 체제가
선택되었다. 원로들로 구성된 원시적인 협의회가 가졌던
초기의 산만한 힘은 절대 군주라는 인물에게 점점 더
집중되었다. 실제적인 왕이 출현한 이후 원로들의 집단은

준(準)입법 그리고 사법 고문단으로 계속 명맥을 유지하였다; 나중에는 조화-협동한 입장의 입법 기관들이 생겨났고, 결국에는 최고 판결 법원이 입법기관으로부터 분리되어 수립되었다.

70:12.3 (798.2) 왕은 사회관례, 기원적 법 또는 불문율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는 나중에 입안된 법, 구체화된 여론을 집행하였다. 비록 더디게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여론을 제시하기 위한 대중 집회가 큰 사회적 진보를 이룩하였다.

70:12.4 (798.3) 초기의 왕들은 사회관례에 의해서—전통 또는 여론에 의해서—크게 제한을 받았다. 최근에 이르러서 유란시아의 어떤 나라들은 이들 사회관례를 정부를 위한 기본 문서에 성문화시켰다.

70:12.5 (798.4) 유란시아의 인간들은 해방에 대한 권리를 가졌고, 자신들의 정부 체계를 구성해야만 한다; 자체 헌법 또는 다른 시민권 헌장들과 행정-관리적 절차를 채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들은 자신의 가장 유능하고 덕망 있는 사람들을 우두머리 집행자로 선택해야만 한다. 입법부에 소속되는 대표자들의 경우에는, 지적으로 분별화되고 도덕적으로 그러한

신성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만 한다.
오직 천부적인 재능을 자질로서 부여받은 사람들과
충분한 체험에 의해서 현명하게 된 자들만이, 상급 법원과
대법원의 재판관들로 선출되어야만 한다.

70:12.6 (798.5)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해방에 대한 헌장을 채택해야만
하고, 그 후에 그것의 현명하고 지적이며 대담한 해석을
끝에 덧붙임으로써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70:12.7 (798.6) 1. 행정부 또는 입법부에 의한 공인되지 않는 힘
탈취.

70:12.8 (798.7) 2. 무식하고 미신에 사로잡힌 선동자의 음모.

70:12.9 (798.8) 3. 과학적 진보의 지연.

70:12.10 (798.9) 4. 평범함이 통치하는 꽉 막힌 상황

70:12.11 (798.10) 5. 악덕한 소수에 의한 지배

70:12.12 (798.11) 6. 독재자가 될 야심차고 영리한 자에 의한 통제.

70:12.13 (798.12) 7. 공황상태의 비참한 혼란.

70:12.14 (798.13) 8. 양심 없는 자들의 착취.

70:12.15 (798.14) 9. 국가에 의하여 시민이 세금에 노예화되는 것.

70:12.16 (798.15) 10 사회적 경제적 공평성을 이루지 못함

70:12.17 (798.16) 11 교회와 국가의 연합.

70:12.18 (798.17) 12 개인적 해방의 상실.

70:12.19 (798.18) 이것들은, 진화하는 세계의 통치자로서 활동하는 대의정부(代議政府)의 기구들 위에 군림하는 합법적 법원들을 두는 목적들과 목표들이다.

70:12.20 (799.1) 유란시아에서 완전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투쟁하는 인류는, 관리-행정 계통들을 완전하게 하고, 항상 변하는 현재적 요구들에게 그것들을 적응시키며, 정부 내부에서의 힘 분배를 개선하며, 그러고 나서 관리-행정적 영도자를 진정으로 현명한 자들로 선택해야만 할 것이다. 신성하고 이상적인 정부 형태가 있지만, 그러한 것은 계시될 수 없고, 시간과 공간의 우주에서 두루 각 행성의 남자와 여자들에 의해서 서서히 그리고 힘들여서 발견해야 한다.

70:12.21 (799.2)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하여 제시되었음]

제 71 편 국가의 발전

71:0.1 (800.1) 국가는 문명의 유익한 진화이다; 전쟁의 파괴와 고통으로부터 사회가 얻은 대표적인 순(純)이익이다. 더욱이 정치적 수완은 투쟁하는 부족들과 국가들 사이의 경쟁적인 무력 다툼을 조절하기 위한 누적된 기법에 지나지 않는다.

71:0.2 (800.2) 현대의 국가는 집단적인 힘을 위한 오랫동안의 투쟁 속에서 살아남은 제도이다. 결국에는 최상의 힘이 지배하게 되었고, 시민은 국가를 위하여 살거나 죽어야 한다는 절대 의무에서의 도덕적 신화와 함께 하나의 사실의 창조체—국가—를 낳았다. 그러나 국가는 신성한 기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의지를 동원한 지능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다; 순전히 진화에 의해 형성된 제도이고 온통 자동적으로 기원된 것이었다.

제 1 장. 태아 단계의 국가

71:1.1 (800.3) 국가는 지역적인 사회 규제적 조직체이며, 가장 강력하고 능률적이고 영속하는 국가는 그 민족이 하나의

공통 언어, 사회관례와 제도를 갖는 단일 국민으로
구성된다.

71:1.2 (800.4) 초기의 국가들은 소규모였고 모두 정복 활동으로
얻어진 결과였다. 그것들은 자발적인 관계적-연합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었다. 많은 국가들이 공격적인 유목민에
의해 세워졌고, 그들은 평화로운 목자들 또는 정착된
농민들을 급습하여 그들을 지배하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였다. 정복의 결과로 형성된 그러한 국가들은 강제적인
것이었고 계층화시키는 것이었는데; 등급은 필연적인
것이었고, 등급 간의 투쟁이 항상 선택되었다.

71:1.3 (800.5) 아메리카의 적색 인종 중에서 북쪽에 있는
부족들은 한 번도 실제적인 국가 형태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부족들의 느슨한 연관 체제를 넘어서는
발전을 이룩한 적이 전혀 없었다. 그들이 가장 가깝게
접근하였던 것은 이로코이스 연맹이었지만, 여섯 개의
국민으로 이루어진 이 집단은 국가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 적이 없었고 존속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현대적 국민 생활에 확실하게 필수적인
요소들이 없었기 때문 이었다:

71:1.4 (800.6) 1. 사유재산의 획득과 상속.

71:1.5 (800.7) 2. 도시들 이외에 농업과 산업.

71:1.6 (800.8) 3. 유용하게 길들여진 동물들.

71:1.7 (800.9) 4. 실천적인 가정 조직. 이 적색 인종들은 모계 가족과 조카를 통한 상속을 유지하였다.

71:1.8 (800.10) 5. 한정된 영토.

71:1.9 (800.11) 6. 강력한 집행자 우두머리.

71:1.10 (800.12) 7. 포로들의 노예화—그들은 양자로 받아들여지든지 아니면 대량 학살되었다.

71:1.11 (800.13) 8. 과단성 있는 정복들.

71:1.12 (800.14) 적색 인종들은 너무 민주적이었다; 그들은 좋은 정부를 가졌지만, 실패하였다.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의 정부 형태를 추구하는, 보다 발전된 백색 인종들의 문명과 일찍 충돌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결국에는 국가 형태로 진화하였을 것이다.

71:1.13 (801.1) 로마 국가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 기초되었다:

71:1.14 (801.2) 1. 부계-가족.

71:1.15 (801.3) 2. 동물 길들이기와 농업.

71:1.16 (801.4) 3. 인구 집중—도시들.

71:1.17 (801.5) 4. 사유재산과 사유지.

71:1.18 (801.6) 5. 노예 제도—시민신분의 등급들.

71:1.19 (801.7) 6. 약하고 퇴보된 민족들을 정복하고 재편성함.

71:1.20 (801.8) 7. 도로망이 구축된 한정된 영토.

71:1.21 (801.9) 8. 개인적이고 강력한 통치자들.

71:1.22 (801.10) 로마 문명에 있어서 가장 취약하였던 점, 그리고 그 제국이 궁극적으로 붕괴된 요인은, 21세에서의 소년들의 해방과 소녀들의 무조건적 방면으로써, 그녀들 자신이 남자를 선택하여 결혼하도록, 또는 온 땅에서 부도덕하게 되려고 해외로 나가도록 해방되었던, 개방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착각한 제도였다. 사회에 해를

끼친 것은 이러한 개혁들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수용한 갑작스럽고 대규모적인 방법에 있었다. 로마의 붕괴는, 한 국가가 내부적인 퇴화와 연관되어 너무 갑작스럽게 확장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준다.

71:1.23 (801.11) 국가의 태동은 지역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혈통적인 결합이 쇠퇴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부족들 간의 연맹은 대개 정복에 의해서 견고하게 형성되었다. 모든 사소한 투쟁들과 집단 간의 차이점들을 초월하는 하나의 주권이 참된 국가의 특징인 반면에, 여러 등급과 특권계급 제도가 이전 시대의 씨족들과 부족들의 흔적으로써 후대의 국가 조직체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보다 큰 영토를 갖는 후대의 국가들은 이러한 소규모의 동족으로 이루어진 씨족 집단들, 가족 체제로부터 국가 권한으로의 귀중한 과도기를 제공하는 부족 체제와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투쟁을 겪어왔다. 후대의 시기 동안에는 무역과 다른 산업 관계적-연합들로부터 여러 씨족 집단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71:1.24 (801.12) 국가 집대성활동의 실패는, 유럽의 중세시대에 있었던 봉건제도처럼, 통치 기법에 있어서 국가-이전의 상태로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암흑기 동안에 지역 국가는 붕괴되었고, 성(城)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의 집단, 씨족과 부족단계의 발전이 재현되는 상태로 되돌아갔다. 그와 비슷한 준(準)국가들이 지금까지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들 모두가 진화적인 후퇴는 아니다; 다수가, 미래에서의 국가의 배아가 되는 핵이다.

제 2 장. 대의 정부의 진화

71:2.1 (801.13) 민주주의는, 하나의 이상(理想)인데, 문명의 산물이고, 진화의 산물이 아니다. 속도를 늦추어라! 신중하게 선택하라! 왜냐하면 민주주의 속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71:2.2 (801.14) 1. 평범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함.

71:2.3 (801.15) 2. 밑바닥의 무식한 통치자들을 선택함.

71:2.4 (801.16) 3. 사회적 진화의 기본 사실들을 깨닫지 못함.

71:2.5 (801.17) 4. 무지하고 나태한 다수파의 손에 쥐어진 만인
공통의 선거권의 위험성.

71:2.6 (801.18) 5. 여론에 노예가 됨; 다수파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71:2.7 (802.1) 여론, 사회 일반의 의견은 사회를 항상
지체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유익한 것인데,
왜냐하면 사회의 발전이 퇴보되는 동안에도 문명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이다. 여론을 훈련시키는 일만이 문명을
증진시키는 안전하고 참된 유일한 방법이다; 강압은
임시적인 편법에 지나지 않고, 총알이 총의에 길을
비켜주면서 그에 따라, 문명의 성장은 점점 더 가속할
것이다. 여론, 사회관례는, 사회적 진화와 국가 발전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원동력이지만; 국가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그 표현 방법이 비폭력적이어야만
한다.

71:2.8 (802.2) 사회의 발전에 대한 평가는, 비폭력적인 표현
방법을 통하여 여론이 개인의 행실과 국가 규정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결정된다. 참으로
문명화된 정부는 여론이 개인 참정권의 힘으로 덧입혀질

때 이루어져 왔었다. 대중의 선택이 어떤 일들을 항상 올바르게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릇된 일을 한다 해도 그들은 올바른 길을 대표한다. 진화가 즉시 최상급의 완전성에 도달하도록 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이고 발전적인 실천적 조절을 이룩한다.

71:2.9 (802.3) 대의정부의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형태가 발전하는 데에는 10개의 계단 또는 단계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71:2.10 (802.4) 1. 개인의 자유. 노예제도, 농노제도, 그리고 모든 형태의 인간 속박이 사라져야만 한다.

71:2.11 (802.5) 2. 마음의 자유. 자유를 누리는 민족이 교육—지적으로 생각하고 현명하게 계획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자유는 대개 유익하기보다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된다.

71:2.12 (802.6) 3. 법의 권세. 인간 통치자들의 의지와 변덕스러움이, 인정된 기본적 법에 따르는 입법부의 법 제정에 의해서 대치될 경우에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

71:2.13 (802.7) 4. 언론의 자유. 인간의 열망과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형태에 있어서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대의정부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

71:2.14 (802.8) 5. 재산의 안전 보장. 어떤 형태로든지 개인의 재산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어떤 정부도 오래 지탱할 수 없다. 사람은 자신의 개인 재산을 사용하고 통제하고 증여하고 팔고 빌려주며 후세에게 전해주기를 열망한다.

71:2.15 (802.9) 6. 탄원할 수 있는 권리. 대의정부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할 의무가 있다. 탄원은 자유 시민권의 고유한 특권이다.

71:2.16 (802.10) 7. 제어할 수 있는 권리.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탄원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를 실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 발전되어야만 한다.

71:2.17 (802.11) 8. 보편적인 투표권. 대의정부는 지능적, 효율적, 보편적 선거인을 전제로 한다. 그러한 정부의 성격은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성격과 능력에 의해서 언제나 결정될 것이다. 문명이 진보됨에 따라, 성(性) 차별을 두지

않는 보편성을 유지하는 반면, 투표권이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재편성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차별화 될 것이다.

71:2.18 (802.12) 9. 공공의 하인들에 대한 통제. 만일 시민들이 공무원들과 공공의 하인들을 안내하고 통제하는 현명한 기법을 소유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정부도 봉사할 수도 그리고 효과적으로도 될 수가 없을 것이다.

71:2.19 (802.13) 10. 지능적이고 훈련된 대표자. 민주주의의 생존 여부는 성공적인 대의정부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것은 기술적으로 훈련되고, 지적으로 유능하고, 사회적으로 충실하며 도덕적으로 적합한 개별존재들만을 공공의 직책으로 선출하는 실천들 위에서 조건이 갖추어진다. 오직 그러한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에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이상적인 국가

71:3.1 (803.1) 정부의 정치적 또는 행정-관리적 형태는, 그것이 만일 시민 사회의 진보를 이룩하는 본질적인 것들-해방, 안전, 교육, 그리고 사회적 조화-협동을 제공한다면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회가 진보하는 경로는, 국가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선택한 영도자에 의해서 예시되듯이, 어떤 국가도 시민들의 도덕적 가치관을 초월하지 못한다. 무지와 이기심은 아무리 높은 유형의 정부라도 틀림없이 몰락시킬 것이다.

71:3.2 (803.2) 매우 유감이지만, 국가적인 이기주의는 사회가 살아남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되어왔다. 선택된 민족이라는 신조는 부족의 결속과 국가 건설에 있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편협성이 정복될 때까지는 어떤 국가도 기능 활동에서의 이상적 차원을 달성할 수 없으며; 그것은 인간의 진보에 있어서 영속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편협성은 과학, 상업, 놀이 그리고 종교의 조화-협동에 의해서 최상으로 물리쳐진다.

71:3.3 (803.3) 이상적인 국가는 강력하고 조화-협동으로 작용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욕구의 자극에 의해서 기능을 발휘한다:

71:3.4 (803.4) 1. 인간이 서로 형제신분의 실현으로부터 유래되는 사랑의 충성심.

71:3.5 (803.5) 2. 현명한 이상들을 기초로 하는 지능적인 애국심.

71:3.6 (803.6) 3. 행성의 사실과 필요 그리고 목표로서 해석한
조화우주적 통찰력.

71:3.7 (803.7) 이상적인 국가의 법들은 숫자가 매우 적으며,
부정적인 금기 시대로부터 탈피하여, 결과적으로 자아-
통제로 발전된 개별적 해방이라는 긍정적 진보의 시대로
 옮겨갔다. 고양된 국가는 그 시민들로 하여금 일하도록
재촉할 뿐만 아니라, 진보하는 기계 시대에 의해서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결과로 이루어진 점증적인
여가시간을 유익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그들을
유도한다. 여가시간은 산출될 뿐만 아니라 소모되어야만
한다.

71:3.8 (803.8) 나태함을 허용하거나 빈곤을 묵인하는 한, 어떤
사회도 멀리까지 진보해 나갈 수 없다. 그러나 만일 결함이
있고 퇴화된 혈통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보호받고 아무
제한 없이 아이를 낳도록 허용된다면, 빈곤과 의존 상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71:3.9 (803.9) 도덕 사회는 시민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자아-존중을 보존하고, 그리고 모든 일반적인 개별존재들에게 자아-실현을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한 사회적 성취 계획은 가장 높은 계층을 유지하는 문화 사회를 이룩할 것이다. 사회적 진화는, 최소한의 규제적 통제를 행사하는 정부 차원의 감독에 의해서 장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최소한도로 지배하면서 가장 잘 조화-협동되도록 하는 국가가 최상의 국가이다.

71:3.10 (803.10) 이상적인 국가 형태는 진화에 의해서, 시민 의식, 사회적 봉사의 의무와 특권에 대한 인식의 완만한 성장에 의해서 달성되어야만 한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정부에서의 부담을 정치적 이권 운동자들의 관리-행정의 끝을 쫓아 따라오는, 하나의 의무로 여기면서 받아들였지만, 나중에는 하나의 특권으로써, 가장 큰 명예로써 그러한 직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어떤 차원이든지 문명의 지위는 국가 기관에 대한 의무들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시민들의 능력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타난다.

71:3.11 (803.11) 사람들이 이룩한 다른 모든 형태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관계적-연합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연방에서는, 도시들과 지방을 다스리는 일이 숙련자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관리된다.

71:3.12 (803.12) 진보된 국가에서는, 정치적 봉사가 시민들의 가장 높은 헌신으로 존중된다. 가장 현명하고 고상한 시민들의 가장 큰 야망은 시민 사회의 인정을 얻는 것, 정부가 위탁하는 어떤 지위에 발탁되거나 지정되는 것이며, 그러한 정부들은 봉사에 대한 최고의 명예를 그들의 민간인 고용인들과 사회 고용인들에게 수여한다. 그 다음의 명예는 철학자들, 교육가들, 과학자들, 산업인들 그리고 군인들에게 수여된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의 우수성에 의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순수한 종교 영도자들은 영적 왕국의 대사(大使)들이 되어 다른 세상 속에서 그들의 실제적인 보상을 받아들인다.

제 4 장. 진보적인 문명

71:4.1 (804.1) 경제와 사회 그리고 정부는, 존속되는 한 반드시 진화되어야만 한다. 진화하는 세계에 있어서 정지된

상태는 쇠퇴를 의미한다; 진화하는 흐름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제도들만이 유지된다.

71:4.2 (804.2) 확대되는 문명의 진보 과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내포한다:

71:4.3 (804.3) 1. 개별적인 해방 보존

71:4.4 (804.4) 2. 가정 보호.

71:4.5 (804.5) 3. 경제적 안전 증진.

71:4.6 (804.6) 4. 질병 예방.

71:4.7 (804.7) 5. 의무 교육.

71:4.8 (804.8) 6. 고용 의무.

71:4.9 (804.9) 7. 여가 시간의 유익한 활용.

71:4.10 (804.10) 8. 불행한 자들을 보살핌.

71:4.11 (804.11) 9. 인종 개선.

71:4.12 (804.12) 10 과학과 예술의 증진.

71:4.13 (804.13) 11 철학—지혜—의 진흥.

71:4.14 (804.14) 12 조화우주 통찰력—영성(靈性)—의 증강.

71:4.15 (804.15) 그리고 문명의 기교에 있어서의 이러한 진보는 필사자의 노력에 대한 가장 고상한 인간적 그리고 신성한 목표들의 실현—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각 개별존재의 최극 열망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사람의 형제신분에 대한 사회적 성취와, 하느님을 인식하는 개인적 지위—을 직접적으로 유도한다.

71:4.16 (804.16) 참된 형제신분의 출현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짐을 기쁘게 감당하는 상태에 어느 사회 계층이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황금률을 실천하기를 실재적으로 원한다. 그러나 허약한 자들 또는 사악한 자들이,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善)에 대한 봉사에 헌신함으로써 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그리고 터무니없이 역이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한, 그러한 이상적인 사회는 실현될 수 없다. 그러한 경우에는 오직 한 가지 과정만이 실재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황금률들"은, 평화를 선호하는 그들의 성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진보된 문명을 파괴시키고자 할 수도 있는 미개한 이웃들에 대항하여 적절한 방어를 유지하는 한편,

그들의 이상(理想)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진보적인 사회를 건설하게 만들 수 있다.

71:4.17 (804.17) 각 세대의 이상주의자들이 보다 낮은 계층의 인간성에 의해서 스스로 멸절되도록 허용한다면, 진화하는 행성 위에서 이상주의가 존속될 수 없다. 그리고 이상주의의 가장 큰 시험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이기적인 이득과 국가적인 웅대함을 목적으로 다른 민족에 대항하여 공격적인 운영을 통해 군사력을 키우고자 하는 유혹에 굴복 당하지 않고, 전쟁을 좋아하는 이웃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군사적 방어태세를 진보된 사회가 유지할 수 있는가?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는 방어 태세가 요구되며, 종교적인 이상주의만이 방어 태세가 호전성으로 바뀌는 변절을 막을 수 있다. 오직 사랑과 형제신분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제 5 장. 경쟁의 진화

71:5.1 (805.1) 경쟁은 사회적 진보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규제되지 않는 경쟁은 폭력을 유발시킨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경쟁은 산업 사회 속에서의 개별존재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일에 발휘됨으로써 전쟁을 서서히 대치시키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 산업들 자체의 생존을 결정하고 있다. (사회관례 앞에서는 살인과 전쟁이 서로 다른데, 살인은 사회의 초기 시대 이후로 금지되어온 반면에, 전쟁은 지금까지 인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금지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71:5.2 (805.2) 이상적인 국가는, 개인적인 독창성에 있어서 부당함을 방지하고 개별적인 경쟁으로부터 발생하는 폭력을 제거하기에 충분할 정도로만 사회적 행위성을 규제한다. 국가 제도의 큰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 너희가 어떤 방법으로 산업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국가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금을 납부하며, 그와 동시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산업으로부터의 세금 징수를 방지하면서 국가가 기생적(寄生的)이고 압제적 상태로 바뀌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겠는가?

71:5.3 (805.3) 어떤 나라든지 초기 시대에는 문명이 진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경쟁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람의 진화가 진척됨에 따라, 협동 체제가 점점 더 효력을 나타내게 된다. 진보된 문명사회에 있어서, 협동은

경쟁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초기 사람은 경쟁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다. 초기 진화의 특성은 생물학적으로 적응하는 자들이 살아남는 것이지만, 후대의 문명은 지능적인 협동과 납득하는 형제우애관계 그리고 영적인 형제신분에 의해서 더 잘 증진된다.

71:5.4 (805.4) 사실,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경쟁은 매우 낭비적인 것이고 심히 비효율적이지만, 이러한 경제적 손실 활동을 줄이고자 하는 조절이 개별존재의 기본적인 해방을 조금이라도 폐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러한 시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제 6 장. 이익 동기

71:6.1 (805.5) 지금-현재,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의 경제는,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가 봉사에 대한 동기에 의하여 증강될 수 없다면, 파멸에 이르게 된다. 편협한 자아-이익에 기초한 무자비한 경쟁은,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까지도 결국 파괴시킨다. 배타적이고 자아-봉사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는 그리스도교의 이상(理想)과 모순되는 것이다—예수의 가르침과는 더욱 모순된다.

71:6.2 (805.6)

경제에 있어서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와 봉사하려는 동기와의 관계는, 종교에서 두려움과 사랑에 의한 동기가 갖는 관계와 같다. 그러나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는 갑자기 파괴되거나 제거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면 게으름을 피울 많은 필사자들을, 일에서 열심히 하도록 유지한다. 그렇다고해서, 이러한 사회적 자극제가 그 목적들에서 언제까지나 이기적일 필요는 없다.

71:6.3 (805.7)

경제 활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기는 모두 기초적인 것이며, 진보된 사회 계층에서는 전혀 무가치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문명의 초기 단계에 두루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는, 사람들이 이익과 관계없는 우월한 유형의 동기들을 스스로 견고하게 소유하게 될 때까지는, 경제적 분투와 사회적 봉사—최상급의 지혜와 흥미진진한 형제신분 그리고 뛰어난 영적 성취라는 초월적 충동들—을 위하여, 그들로부터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

제 7 장. 교육

71:7.1 (806.1) 영구적인 국가는 문화 위에 세워지고, 이상에 의해서 지배되며, 봉사에 의해서 동기를 얻는다. 교육의 목적은, 기술 습득, 지혜 추구, 자아신분의 실현, 그리고 영적 가치의 달성이 되어야만 한다.

71:7.2 (806.2)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생을 통하여 두루 교육이 계속되고, 그리고 때로는 철학이 그 시민들의 주요 추구 대상이 된다. 그러한 공화국의 시민들은, 인간관계의 의의(意義), 실체의 의미, 가치의 고결함, 삶의 목표들, 그리고 조화우주 운명의 영광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의 향상으로서의 지혜를 추구한다.

71:7.3 (806.3) 유란시아인 들은 하나의 새롭고도 높은 문명사회에 대한 가시화된 꿈을 가져야만 한다. 교육은, 순수하게 이익으로-동기가 유발되는 경제적 체제를 거쳐 지나가면서 새로운 가치의 차원으로 도약할 것이다. 교육은 너무 오랫동안 지엽주의, 군국주의, 자기 양양 그리고 성공 추구에 매달려 왔다; 결국에는 반드시 전 세계적이고, 이상적이고, 자아를-실현하고 그리고 조화우주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 생겨나야 할 것이다.

71:7.4 (806.4) 최근에 들어서 교육은 성직자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법률가들과 사업가들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결국에는 그것이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에게 주어져야만 한다. 선생들은 반드시 자유로운 존재, 참된 영도자들이어야만 하며, 마지막에는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이 주된 교육적 추구 분야가 될 것이다.

71:7.5 (806.5) 교육은 삶에 있어서의 본업이다; 평생 동안 계속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상승하는 차원의 필사자적 지혜를 인류가 점점 더 체험할 수 있게 되어야만 한다:

- 71:7.6 (806.6) 1. 사물에 대한 지식.
- 71:7.7 (806.7) 2. 의미의 실현.
- 71:7.8 (806.8) 3. 가치들의 올바른 인식.
- 71:7.9 (806.9) 4. 일의 고결함—의무.
- 71:7.10 (806.10) 5. 목적에 대한 동기부여—도덕성.
- 71:7.11 (806.11) 6. 봉사를 사랑함—성격.
- 71:7.12 (806.12) 7. 우주적 통찰력—영적인 인식.

71:7.13 (806.13) 그렇게 되면, 이러한 성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사자의 궁극적인 마음 달성, 하느님에 대한 인식으로 상승할 것이다.

제 8 장. 국가의 성격

71:8.1 (806.14) 어떤 인간 정부든지 유일하게 존중되는 특징은, 행정과 입법 그리고 사법 기능이라는 세 가지 범위로 국가 체제가 분할되는 것이다. 우주는, 기능과 권한에 대한 그러한 분리 계획에 따라서 관리-운영된다. 효과적인 사회 규정 또는 시민 정부에 대한 이러한 신성한 개념을 제외하면, 한 민족이 시민들에게 제공하려고 선출할 수도 있는 국가 형태가, 증강되는 자아-통제와 증가되는 사회적 봉사에 대한 목표를 향하여 언제까지나 진보하고 있는가에, 문제 되는 것이 거의 아니다. 한 민족의 지적 예리함, 경제적인 지혜, 사회적 영리함 그리고 도덕적 정력(精力)은 국가신분 안에 모두 신실하게 반영된다.

71:8.2 (806.15) 국가 체제의 진화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진보를 수반한다:

71:8.3 (806.16) 1.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라는 삼중적 정부의 창립.

71:8.4 (806.17) 2.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활동들의 자유.

71:8.5 (807.1) 3.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인간 속박 철폐.

71:8.6 (807.2) 4. 세금 징수를 통제할 수 있는 시민들의 능력.

71:8.7 (807.3) 5. 보편적인 교육 체제 설립—요람에서 무덤까지 확장된 학습.

71:8.8 (807.4) 6. 지방과 국가 정부 사이의 적절한 조절.

71:8.9 (807.5) 7. 과학 육성과 질병 퇴치.

71:8.10 (807.6) 8. 성적(性的)인 평등성에 대한 정당한 인식과, 산업과 정부 안에서의 여자들의 전문화된 봉사 및,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의 남자들과 여자들의 조화-협동적 기능 발휘.

71:8.11 (807.7) 9. 힘들여 일하는 노예 상태가 기계 발명과 그에 수반되는 기계시대의 승리에 의해서 제거됨.

71:8.12 (807.8) 10. 지방 언어들의 정복—보편적 언어의 승리.

71:8.13 (807.9) 11. 전쟁의 종결—국가들로 구성된 대륙적(大陸的) 법정들에 의해서 국가적이고 종족적인

차이점들에 대해 국제적인 판결이 이루어지던 것이, 대륙적 법정들에서 주기적으로 은퇴하는 수장들로부터 자동적으로 모집된 최고 행성 법정에 의해서 통솔됨. 대륙적 법정들은 강권적이고; 범세계적 법정은 조연적—도덕적—이다.

71:8.14 (807.10) 12. 지혜 추구의 전(全)세계적 유행—철학이 찬미됨. 그 행성이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되는 초기 단계들에 들어가고 있음을 알려주게 될, 세계적인 종교의 진화.

71:8.15 (807.11) 이것들은 진보적인 정부를 위한 필요조건들이며 이상적인 국가 체제의 특징이다. 유란시아는 이러한 고양된 이상(理想)들의 실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문명화된 인종들이 태동되고 있다—인류는 보다 높은 진화 목표들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다.

71:8.16 (807.12)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서 후원됨]

제 72 편 이웃 행성의 정부

72:0.1 (808.1) 라나휘지의 허락에 의거하여 그리고 에덴시아의 지고자의 허락 하에, 나는 사타니아 체계에 소속된 어느 멀지 않은 행성에 살고 있는 가장 진보된 인간 종족의

사회적, 도덕적, 정치적 생활 중 일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72:0.2 (808.2) 루시퍼의 반란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고립되게 되었던 사타니아에 있는 전체 세계들 중에서, 이 행성은 유란시아와 거의 똑같은 역사를 체험해 왔다. 바로 이 두 구체들의 유사성 때문에 이러한 아주 특별한 소개를 허락받은 것인데, 왜냐하면 어느 한 행성의 관련사들을 다른 행성에게 설명하는 일은 그 체계 통치자들에게 매우 진귀한 일이기 때문이다.

72:0.3 (808.3) 유란시아와 마찬가지로, 루시퍼 반란과의 관계에서 이 행성의 행성영주가 불충함으로 말미암아 이것 역시 타락하였다. 아담이 유란시아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행성도 물질아들을 받아들였으며, 이 아들 역시 불이행하여, 그 구체를 고립된 채로 놔두고 있는데, 이는 치안법관 아들이 그곳 필사 종족들에게는 증여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제 1 장. 대륙 국가

72:1.1 (808.4) 이 행성의 모든 불리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비슷한 크기의 독립된 한 대륙에서

하나의 매우 우월한 문명이 진화하고 있다. 이 나라의 국민은 약 140,000,000명에 달한다. 그 민족은 혼합된 종족이고, 청색 인종과 황색 인종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유란시아에서 백색 인종이라고 불리는 인종보다 약간 더 많은 보라색 인종 성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종족들은 아직 충분히 피가 섞이지 않은 상태이지만, 매우 적극적으로 형제우애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 대륙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현재 90세 정도이며, 그 행성에 사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약 15퍼센트 정도 더 오래 사는 것이다.

72:1.2 (808.5) 이 나라의 산업 기술은 그 대륙의 독특한 지형으로부터 매우 큰 혜택을 누렸다. 높은 산악지대에는 일 년에 8개월 동안 비가 내리는데, 그 지역의 아주 한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자연 조건으로 말미암아 수력 발전이 활용되고 있고, 대륙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서쪽에 있는 비교적 건조한 지역에 엄청난 양의 물을 공급할 수 있다.

72:1.3 (808.6) 이들 국민들은 자아-지탱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인접된 국가들로부터 어떤 것도 수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들은 천연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기법에 의해서 생활필수품들의 결핍을 보충하는 방법을 배워왔다. 그들의 국내 교역은 활발하지만, 그들보다 덜 진보된 이웃 국가들의 전반적인 호전성 때문에 국제 무역은 거의 하지 않는다.

72:1.4 (808.7) 이 대륙 국가는 대체로 행성의 진화 추세를 따랐는데: 부족국가 단계로부터 강력한 통치자들과 왕들이 등장하기까지 수 천 년이 걸렸다. 많은 서로 다른 계층의 정부에 의해 무조건적인 군주들이 이어졌다—실패로 끝난 연방, 공동체 연관, 그리고 독재 정권들이 끝없이 허다하게 오고 갔다. 이러한 성장은 500년 전까지 계속되었는데, 정치적 혼란기에, 그 나라의 강력한 힘을 가진 독재자-집정관들 중의 하나가 심정을 바꾸었다. 그는 다른 통치자인 나머지 두 사람들 중에서 비교적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자신의 독재자신분을 포기하고, 한 사람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조건으로 퇴임하기를 자청하였다. 그리하여 그 대륙의 통치권은 한 통치자의 손안에 들어갔다. 통합된 국가는 거의 100년

이상 강한 군주적 통치 아래에서 진보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 훌륭한 해방에 대한 헌장이 진화되었다.

72:1.5 (809.1) 그 후에 군주 정치로부터 대의제도 형태의 정부로 전환되는 과정이 점차적으로 진행되었고, 왕은 단순한 사회적 또는 국민 정서를 위한 명목상의 대표자가 되었으며, 남자 후계자가 이어지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사라졌다. 현재의 연방은 겨우 200년 전부터 실존하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 앞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법들을 향하여 계속 발전되어 왔으며, 산업과 정치 분야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발전은 지난 10년 동안에 이루어져 왔다.

제 2 장. 정치 구조

72:2.1 (809.2) 이 대륙 국가는 중앙에 위치한 국가 수도와 함께 대의 정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비교적 독립된 상태에 있는 100개 주(州)를 관할하는 하나의 강력한 연맹을 이루고 있다. 이 주들은 10년 임기의 자체 주지사들과 의원들을 선출하며, 누구도 재선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 재판관들은 주지사들의 임명과 의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평생토록 재직하며, 시민 100,000명마다 대표자 한 사람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72:2.2 (809.3) 도시의 크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5개 유형의 시(市) 정부가 있지만, 어떤 도시도 주민이 1 백만 명 이상을 가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들 도시를 다스리는 체계는 매우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경제적이다. 시의 관리-행정을 맡는 소수 공직자들은 최고 유형의 시민들에 의하여 날카롭게 조사를 받는다.

72:2.3 (809.4) 연방 정부는 세 개의 조화-협동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가 있다. 연방 정부의 우두머리 집행자는 6년마다 전체 지역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다. 그 사람은 재선이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75개 주 이상의 주 의원들의 요청과 각각의 주지사들의 동의에 의해서 재선될 수 있지만, 한 번 이상은 재임될 수 없다.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전직 집행자 우두머리들로 구성된 최고 내각으로부터 조언을 받는다.

72:2.4 (809.5) 입법부는 3개의 의회로 구성된다:

72:2.5 (809.6)

1. 상원(上院)은 산업, 전문직, 농업 그리고 다른 노동자 집단들에 의해서 선출되며, 경제적인 기능에 따라서 투표한다.

72:2.6 (809.7)

2. 하원(下院)은 산업이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회적, 정치적, 철학적 집단들을 포함하는 특정한 사회 조직체들에 의해서 선출된다. 건전한 신분을 갖는 모든 시민들은 두 부류의 대표자들 선출에 모두 참여할 수 있지만, 그 선거가 상원에 관계된 것이냐 하원에 관계된 것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분류된다.

72:2.7 (809.8)

3. 제 3 의회—고령의 정치가들—노련한 시민 봉사자들을 포용하고 있고 우두머리 집행자와 지역(연방에 소속된) 집행자들과 대법정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상하 양원(兩院)의 지도급 관리들이 지명하는 많은 저명한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집단은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회원들은 고령의 정치가 자신들의 다수결 활동에 의해서 선출된다. 회원관계는 평생이며, 빈자리가 발생할 때에는 지명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남은 기간 동안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선출된다. 이 기관의 활동범위는 순전히 조언하는

역할이지만, 여론의 막강한 규제자이고 그리고 정부의 모든 부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72:2.8 (810.1) 연방정부의 행정-관리적 활동들 거의 대부분은 10개의 지역별(연방 정부 산하) 관계당국들에 의해서 수행되는데, 그 각각은 10개의 주들의 관계적-연합으로 구성된다. 이 지역별 기관들은 전적으로 집행과 행정-관리만을 담당하는데, 입법이나 사법 기능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10개 지역의 집행자들은 연방 우두머리 집행자가 직접 지명하며, 그들의 재직 기간은 그의 임기—6년—와 똑같다. 연방정부 대법정이 10명의 이 지역별 집행자들 지명에 대하여 승인하고, 그들은 재(再)지명될 수 없으며, 은퇴한 집행자들은 자동적으로 자기 후임자의 연관-동료 그리고 충고자가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지역 대표자들이 행정-관리 공직자들로 이루어진 내각을 직접 구성한다.

72:2.9 (810.2) 이 나라는 두 개의 주요 재판 체계—법에 의한 재판과 사회경제에 의한 재판—를 통하여 판결을 내린다. 법에 의한 재판은 다음과 같이 3개의 기능으로 분류된다:

72:2.10 (810.3)

1. 지방법원—시 또는 지방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그 결정은 주(州) 고등법원에 항소될 수 있음.

72:2.11 (810.4)

2. 주(州) 대법원—그 결정은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최종적인 것이지만 연방정부 또는 시민의 권리와 해방에 대한 침해는 예외임. 지역 집행자들은 어떤 사례든지 즉시 연방 대법원의 법정 앞에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72:2.12 (810.5)

3. 연방 대법원—주(州) 법원들로부터 상정된 항소 사건들과 국가적 논쟁들에 대하여 판결하는 대법정. 이 대법정은, 어떤 주 법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40세부터 75세 사이에 있는 12명의 남자들로 구성되는데, 그들은 우두머리 집행자에 의해서 지명되고 최고 내각 과반수의 동의와 입법부의 제3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 최고 사법 기관의 모든 결정들은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만 한다.

72:2.13 (810.6)

사회경제에 의한 재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의 기능으로 나뉜다:

72:2.14 (810.7) 1. 가정 재판소, 가정과 사회 체계의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와 연관되어 있음.

72:2.15 (810.8) 2. 교육 재판소—주(州)와 지방의 학교 체계들과 연결되고 교육 행정-관리적 체제의 집행 그리고 입법 부서들과 연관된 사법기관.

72:2.16 (810.9) 3. 노동 재판소—모든 경제적 오해들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관할권에 관한 법정.

72:2.17 (810.10) 연방정부 재판소는 국가 정부의 세 번째 입법부, 고령의 정치가들로 구성된 의회의 4분의 3의 찬성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경제적 사건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가정과 교육 그리고 노동 최고 재판소의 모든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다.

제 3 장. 가정 생활

72:3.1 (811.1) 이 대륙에서는, 한 집에서 두 가족이 사는 것은 위법이다. 그리고 집단적인 주거는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유형의 건물 대부분이 철거되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클럽이나 호텔 또는 다른 유형의 집단적 거주지에서 살 수 있다. 집을 위해 허락된

가장 작은 대지는 최소한 50,000 평방피트의 땅을 갖추어야만 한다. 집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땅과 재산은 최소한의 택지를 위한 비용의 10배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72:3.2 (811.2) 이 사람들의 가정생활은 지난 세기 동안에 크게 증진되었다. 부모로 수고하는 사람들,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부모로서의 자녀 훈련을 위한 학교에 의무적으로 다녀야만 한다. 심지어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농부들도 이것과 상응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데, 매 10일마다—2주마다, 그들은 5일을 한 주(週)로 계산하기 때문임—근처에 있는 센터에 나가야만 한다.

72:3.3 (811.3) 각 가정의 평균 자녀 숫자는 다섯이며, 그들은 충만하게 부모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 부모들 중의 어느 한 쪽 또는 둘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정 재판소에 의해서 지정되는 후원자의 통제를 받게 된다. 어떤 가족이든지 부모가 둘 모두 없는 고아의 후원자가 되는 상급(賞給)을 최고의 명예로 간주한다. 경쟁적인 시험이 부모들에게 시행되고, 최고 부모로 분별된-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사람들의 가정에 고아가 맡겨진다.

72:3.4 (811.4) 이 사람들은 가정을 그들의 문명을 위한 기본 교육기관으로 간주한다. 자녀들 교육에 가장 가치 있는 분야와 성격 훈련이 그 부모들과 가정에 의해 보장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아버지들도 어머니들이 하는 것과 거의 같은 정도로 아이들의 양육에 참여해야만 한다.

72:3.5 (811.5) 모든 성교육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또는 법적인 수호자들에 의해 관리-운영된다. 도덕 교육은 학교 실습실에서 방과 후 시간 동안에 선생들에 의해서 제공되지만, 종교적인 훈련은 그렇지 않고, 배타적인 부모들의 특권으로 간주되며, 종교는 가정생활에서의 하나의 집대성을 이루는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순전히 종교적인 교육은 철학의 신전에서만 오직 공개적으로 제공되며, 유란시아의 교회들과 같은 배타적인 종교 기관은 이 국민들에서 조성되지 않고 있다. 그들의 철학 중에, 종교는 하느님을 알고자하는 분투와 동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자기 동료에 대한 사랑을 현시하려는 것이지만, 이것이 이 행성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종교 상태의 전형적인 것은 아니다. 이 들 국민에게는 종교가 전적으로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적 모임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공공장소는 없다. 정치적으로, 유란시아인

들이 보통 말하는 것과 같은, 교회와 국가는 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종교와 철학은 기이하게 중첩되어 있다.

72:3.6 (811.6) 20년 전까지만 하여도 영적인 선생들(유란시아의 목사에 해당하는)이 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은 각 가정의 자녀들이 그 부모들로부터 올바르게 훈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방문하였다. 영적 충고자이며 시험관인 이 사람들은 현재 새로 창립된 영 진보 재단(財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어느 기관의 지도를 받고 있다. 아마 이 기관은 파라다이스 치안법관 아들의 도착 이후까지 더 이상 진화하지 않을 것이다.

72:3.7 (811.7) 어린이들은 15살이 될 때까지 자기 부모들에게 법적으로 소속되어 있고, 그 나이가 되면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처음으로 부과되기 시작한다. 그 때부터 5회에 걸쳐 비슷하게 시행되는 5년 동안의 공공 훈련들이 비슷한 연령의 집단들에게 부여되고, 그들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줄어드는 반면, 국가에 대한 새로운 시민으로서의 의무들과 사회적 의무들이 부과된다. 투표권은 20세에 주어지고,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는 25세가

되어야 부여되며, 자녀들은 30세가 도달하면 가정을 떠나야만 한다.

72:3.8 (812.1) 결혼과 이혼에 관한 법은 나라 전체가 동일하다. 20세—시민으로서 참정권을 갖는 연령—이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혼 허락은 오직, 결혼 의사를 밝힌 지 1년 후에야, 그리고 결혼 생활의 의무들을 가르치는 부모 예비 학교에서 충분히 훈련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증명서가 신랑과 신부 둘 모두에 의해 제시된 후에야 내려진다.

72:3.9 (812.2) 이혼 규정은 어느 정도 엄격하지 못한 편이지만, 가정 재판소에 의해서 발행된 이혼 허가서는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로 1년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없으며, 이 행성에서의 1년은 유란시아의 1년보다 훨씬 길다. 그들의 이혼을 쉽게 허용하는 법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혼율은 유란시아의 문명화된 종족들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제 4 장. 교육 체계

72:4.1 (812.3) 이 나라의 교육 체계는 5세부터 18세까지 대학교육 이전의 의무교육과 남녀 공학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이 학교들은 유란시아에 있는 것들과는 매우

다르다. 그곳에는 교실이 없고, 한 번에 한 과목만 배우며, 처음부터 3년 동안의 기간이 지나면 모든 학생들이 교사 보좌관이 되어, 하급생(下級生)들을 가르친다. 학교 실습장과 농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확실한 자료가 요구될 때에만 책이 사용된다. 그 대륙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가구들과 기계장치들—발명과 기계화가 이루어지는 중대한 시기에 놓여 있음—이 이들 실습소로부터 생산된다. 각 실습소 주변에는 학생들이 필요한 참고 서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 실용적인 도서관이 있다. 농업과 원예술에 관한 학습 역시 각 지역 학교 근처에 있는 광대한 농장에서 전체 학기 동안 진행된다.

72:4.2 (812.4) 정신박약아들에게는 농업과 목축업만을 가르치고, 그들은 정상-이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부모신분을 막기 위해 성(性)에서 격리된 특별 보호관리 거류지에서 생활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조치들은 75년 동안 이행되어 왔다.

72:4.3 (812.5) 각 사람들은 매 년마다 1개월 동안의 휴가를 갖는다. 대학교 이전(以前)의 학교들은 10개월로 되어있는

1년 중 9개월 동안 수행되고, 방학은 부모들 또는 친구들과 여행하는 일로 보낸다. 이러한 여행은 성인-교육 계획의 한 부분이며, 일생동안 계속되는데, 그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은 노후 보험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모아진다.

72:4.4 (812.6) 학습시간의 4분의 1은 운동—경쟁적인 경기(競技)들—에 소요되며, 그 지역의 시합에서 이긴 학생들은 주(州)와 지역 시합을 거쳐 기술과 용맹성을 겨루는 국가 시합에 진출한다. 마찬가지로, 낮은 계급의 사회기관으로부터 국가적인 명예를 얻는 시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은 웅변과 음악 시합은 물론, 철학과 과학에 관한 시합에 관심을 기울인다.

72:4.5 (812.7) 학교 체제는 3개의 상관관계된 분야들로 구성된 국가정부와 똑같은 형태이고, 가르치는 직원들은 제삼(第三)의 또는 조언하는 입법부 의회와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이 나라의 주요 교육목적은 모든 학생들을 자아-공급할 수 있는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다.

72:4.6 (813.1) 18세가 되어 대학 교육 체계 이전의 교육 과정을 마친 각 자녀들은 모두 훌륭한 거장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성인 교육기관 또는 대학교에서 책을 통하여 연구하거나 특별한 지식을 추구하게 된다. 우수한 학생이 계획된 기간 이전에 과정을 완료하게 되면, 그에게는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고, 그것에 의하여 그는 자기가 좋아하고 직접 발명하는 어떤 계획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전체의 교육 체계는 개별존재를 적절하게 훈련시킬 수 있도록 계획된다.

제 5 장. 산업 조직

72:5.1 (813.2) 이 사람들의 산업 제도는 그들이 이상적으로 꿈꾸는 것보다 훨씬 뒤쳐져 있다; 자본과 노동은 아직도 그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진지하게 협동하는 계획에 맞도록 조절되고 있다. 독특한 형태의 이 대륙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모든 산업 재단들의 주주가 되고 있다; 지능을 갖춘 모든 노동자는 서서히 소규모 자본가가 되고 있다.

72:5.2 (813.3) 사회적인 반목이 줄어들고 있으며, 선한 뜻이 신속하게 자라나고 있다. 노예 제도의 붕괴로(약 100년 전) 인하여서는 어떤 심각한 경제적 문제도 야기되지 않았는데, 매해마다 2퍼센트 정도가 자유를 얻음으로써

이러한 조절 과정이 서서히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시험에서 만족스럽게 통과된 노예들은 시민권을 획득하였고, 우월한 이 노예들은 전쟁 포로들 또는 그 포로들의 자녀들이었다. 약 50년 전에 그들은 자기들보다 열등한 마지막 남은 노예들을 추방하였고, 아주 최근에 그들은 타락하고 부도덕한 계층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는 임무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72:5.3 (813.4) 이 사람들은 최근에 산업 간의 불화를 조절하고 경제적 남용을 조절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들을 개발하였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들보다 현저하게 개선된 것이다. 개인들 간의 또는 산업 간의 불화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폭력은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임금과 이익금 그리고 다른 경제적 문제들은 엄격하게 규제되지는 않으나, 대개 노동 입법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으며, 반면에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들은 노동 재판소로 이관된다.

72:5.4 (813.5) 노동 재판소는 이제 겨우 3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매우 만족스럽게 운영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발전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노동 재판소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에서 법적인 보정(補整)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72:5.5 (813.6) 1. 투자된 자본에 대한 합법적인 이자율.

72:5.6 (813.7) 2. 산업 운영을 위하여 고용된 기술에 대한 합당한 급여.

72:5.7 (813.8) 3. 노동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임금.

72:5.8 (813.9) 이것들은 먼저 계약에 의거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아니면 그들은 줄어든 소득에도 불구하고 과도기적인 축소를 통하여 비례적으로 분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러한 고정된 요금을 초과하는 모든 소득은 배당금으로 간주될 것이고 세 개의 분야 즉: 자본가와 기술자 그리고 노동자에게 할당될 것이다.

72:5.9 (813.10) 매 10년마다 지역 집행자들이 합법적인 하루 노동량을 조절하여 발표한다. 현재 산업체는 5일을 한 주로 하여 4일을 일하고 하루는 쉰다. 이 사람들은 매일 6시간 일하며,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10개월로 되어 있는 1년 중에서 9개월 동안 일한다. 휴가 기간에는 대개 여행을 즐기고, 새로운 방법의 운송 수단들이 아주 최근에

개발되어 온 국민이 여행을 즐기고 있다. 여행하기에 적당한 기후는 일 년 중 약 8개월 동안이며, 가장 좋은 기회를 이용하고 있다.

72:5.10 (813.11) 200년 전에는 이익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전체 산업계를 지배하였지만, 오늘날에는 다른 높은 추진력에 의해서 급속도로 대치되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경쟁이 아주 심하지만,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산업으로부터 놀이, 기술, 과학적인 달성, 그리고 지적인 학식으로 옮겨져 왔다. 그것은 사회적 봉사와 정부에 대한 충성심 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한다.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빠른 속도로, 대중을 위한 봉사가 명예를 얻는 주된 목적이 되어가고 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기계를 파는 자기 가게의 사무실에서 하루에 6시간 일을 하고, 그 후에는 정치인을 위한 학교의 지역 분교로 서둘러 가서 공공 봉사를 위한 자격을 갖추려고 모색한다.

72:5.11 (814.1) 이 나라에서는 노동이 점점 더 명예를 받아가고 있으며, 18세 이상이고 신체 건강한 모든 시민들은 집과 농장에서, 어떤 공인된 산업체에서, 일시적으로 실직된

사람들을 고용하는 공공 사업에서, 또는 광산에서
강제적으로 일하는 노동자 대열에 섞여서 일한다.

72:5.12 (814.2) 또한 이 사람들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혐오감—게으름뿐만 아니라 불로소득에 의한 재산에 대한
혐오감—을 키우고 있다. 그들은 속도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들의 기계장치를 정복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한 때 정치적 해방을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들은 이제 그 두
가지를 누리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자기들
힘으로 획득한 여가 시간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자아-실현을 증진시키는 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6 장. 노령 보험

72:6.1 (814.3) 이 나라는, 자선 행위의 자아-존중-파괴 유형을
노후의 안전을 보장하는 어마어마한 정부-보험으로
대치시키려는 단호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나라는
어린이들 각자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어른들에게는 각각
일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병든 자들과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보험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72:6.2 (814.4) 이 민족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70세가 될 때까지 그들을 일터에 남아있도록 승인할 주(州) 노동위원들로부터 허락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 65세에 유급 직장으로부터 은퇴해야만 한다. 이러한 연령 제한은 공무원들 또는 철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체장애자들 또는 영구적으로 불구가 된 사람들은, 법원의 명령과 지역 정부의 은퇴연금 위원회의 승인에 의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퇴직자 명단에 오를 수 있다.

72:6.3 (814.5) 노인의 은퇴연금을 위한 자금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자원으로부터 조성된다.

72:6.4 (814.6) 1. 연방 정부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 중에서 매 월 하루에 해당되는 소득을 징수함.

72:6.5 (814.7) 2. 유산—수많은 부자 시민들이 이 목적으로 자산을 남김.

72:6.6 (814.8) 3. 주(州)가 관리하는 광산의 의무 노동으로 생긴 이익금. 징발된 노동자들의 생계비와 그들 자신의 은퇴 보험료를 제외하고, 그들의 노동에 대한 모든 이익금이 이러한 은퇴연금 자금으로 전환된다.

72:6.7 (814.9) 4. 천연자원으로부터 생긴 수익금. 그 대륙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천연 자원은 연방정부에 의해서 사회 신탁 기금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은, 질병 예방과 천재 교육 그리고 정치가를 위한 학교의 학생들 중에서 특별하게 촉망되는 개별존재들을 위한 경비의 사회적인 목적에 사용된다. 천연자원으로부터 생긴 수익금의 절반은 노인 은퇴연금을 위한 자금으로 들어간다.

72:6.8 (814.10) 비록 주(州)와 지역의 보험 재단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보호하는 보험을 제공하더라도, 노인 은퇴연금은 오직 연방정부에 의해서 10개의 지역 관청들을 통해 관리-운영된다.

72:6.9 (814.11) 이러한 정부 자금은 오랫동안 정당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되어 오고 있다. 반역과 살인 다음으로 법정에서 내리는 가장 무거운 형벌은 공공 신뢰에서의 배반이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신의가 없는 행위는 이제 모든 범죄들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제 7 장. 세금

72:7.1 (815.1) 연방정부는 오직 노년기 연금생활의 관리-행정, 그리고 천재적이고 창조적인 독창성을 육성하는 일에만 온정적으로 보살핀다; 주(州) 정부는 다소 개별 시민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지역 정부는 훨씬 더 온정적이고 사회적이다. 도시(또는 그에 속한 종속부서)는, 건강, 공중위생, 건축 규정, 미화, 상수도, 조명, 난방, 오락, 음악, 그리고 통신 등과 같은 자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둔다.

72:7.2 (815.2) 모든 산업에서 첫 번째 관심은 건강에 있다; 육체적인 행복의 어떤 위상이 산업과 공동체의 최우선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개별존재와 가족의 건강 문제는 오직 개인적으로 염려해야 될 사항이다. 질병 치료에 있어서는, 순전히 개인적인 다른 모든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간섭을 자제하는 것이 점점 더 정부의 계획으로 굳어지고 있다.

72:7.3 (815.3) 도시들은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빚을 질 수도 없다. 그들은 주(州) 정부 기금으로부터 주민 숫자대로 배당액을 받아들이며, 그들의 사회주의적 기업들의 수익금으로부터 생긴 자금과 다양한 상업 활동에 대한 면허 제도로부터 생긴 자금이 추가된다.

72:7.4 (815.4) 도시의 범위를 실천적으로 크게 확장시키는 고속 운송 시설들은 시(市) 당국의 통제를 받는다. 그 도시의 소방서는 화재-예방 그리고 보험 재단들에 의해서 후원되며, 도시와 지방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불에 타지 않도록 —75년 전부터 건축되었다.

72:7.5 (815.5) 시 정부는 보안 요원들을 운영하지 않는다; 경찰 요원들은 주(州) 정부에 의해서 유지된다. 이 부서는 거의 대부분이 25세로부터 50세 사이의 미혼 남자들로부터 모집된다. 대부분의 주(州)들은 미혼 남자들에게 비교적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은 주(州) 경찰로 선정된 모든 남자들을 위해 사용된다. 평균적인 주 경찰 요원 숫자는 현재 50년 전에 비하여 10분의 1에 불과하다.

72:7.6 (815.6) 100개의 비교적 자유롭고 주권을 가진 주 정부들의 세금 징수 방법은, 경제적 조건 그리고 다른 조건들이 그 대륙의 각 지역마다 크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또는 전혀 일률적이지 않다. 각각의 주는 연방 대법원의 허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될 수 없는 10개의 기본적으로 입법화된 규정들을 갖고 있으며, 이 조항들 중의 하나는 도시 또는 지방에 상관없이 택지를 제외한 어떤 부동산이든지 일 년에 그 가치의 1퍼센트 이상을 세금으로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2:7.7 (815.7) 연방 정부는 빚을 질 수 없으며, 전쟁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주(州)든지 돈을 빌리기 전에 4분의 3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연방 정부가 빚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의 사건 안에서는 국방 위원회가 필요시에 각 주들에게 비용뿐만 아니라 인력과 물자들을 분담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25년이 넘기 전에 어떤 빚도 청산되어야 한다.

72:7.8 (815.8) 연방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자원으로부터 모금된다:

72:7.9 (815.9)

1. 수입 관세. 모든 수입품에는 이 나라의 생활수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획된 관세가 부과되며, 그것은 이 행성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훨씬 높다. 이 관세들은 노동 의회의 양원(兩院)이 경제 관련사들의 우두머리 집행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에 최고 노동 재판소에 의해 정해지는데, 그 책임자는 이들 두 입법부 기관들이 공동으로 지명한 사람이다. 노동 의회의 상원은 자본력이 낮은 노동자들에 의해서 선출된다.

72:7.10 (816.1)

2. 특허 사용료. 연방정부는 10개 지역의 실험실에서 일하는 모든 분야의 천재들—예술가들, 작가들, 과학자들—을 도와줌으로써 발명품과 기원적인 창조물들이 나오도록 용기를 북돋우며 그들의 특허권을 보호한다. 그 대가로 정부는, 기계, 책, 예술품, 식물, 또는 동물 중 어디에 속하든지, 그러한 모든 발명들과 창작들로부터 실현된 이익금의 절반을 취한다.

72:7.11 (816.2)

3. 상속세. 연방정부는, 재산의 크기를 비롯한 다른 조건들에 따라서 1퍼센트 내지 50퍼센트의 누진 상속세를 부과한다.

72:7.12 (816.3) 4. 군수 장비. 정부는 군용 장비와 해군 장비를 상업 그리고 오락 용도로 빌려줌으로써 상당한 양의 수익금을 만든다.

72:7.13 (816.4) 5. 천연자원. 천연자원으로부터의 수익금은, 연방에 소속된 주(州)들의 헌장에 명시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전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고로 전환된다.

72:7.14 (816.5) 연방정부의 지출금은, 국방 위원회에 의해서 부과된 전쟁 자금을 제외하고, 입법부의 상원 의회에서 발의되고, 하원 의회의 동의를 얻으며, 우두머리 집행자의 허락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100명으로 구성된 연방 예산 위원회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이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24년간 봉사하도록 주지사들에 의해서 지명되고, 주 의회에 의해서 매 6년마다 4분의 1씩 선출된다. 이 기관은 매 6년마다 4분의 3의 투표에 의해서 그들 중의 하나를 우두머리로 뽑으며, 그 후부터 그는 연방 기금에 대한 관리자 그리고 지도자-통제자가 된다.

제 8 장. 특수 대학들

5세부터 18세까지 실시되는 기본적인 의무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특별한 학교들이 다음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1. 정치인을 위한 학교들. 이 학교들은 세 개의 분야로 나뉘는데: 국가와 지역과 주(州)로 구분된다. 그 나라의 공공 직책들은 네 개의 분야들로 나뉘어져 있다. 공공 신뢰의 첫 번째 분야는 주로 국가 관리-행정에 소속되어 있고, 이 집단의 모든 공무원들은 반드시 정치인을 위한 지역학교와 국가 학교를 둘 모두 마쳐야만 한다. 정치인을 위한 10개 지역 학교들 중의 어느 하나를 졸업한 개별존재들은 두 번째 분야의 정책 기관이나 선거 기관 또는 임명된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일하는 기관은 지역 관리-행정과 주(州) 정부에서의 의무 이행 능력을 요구한다. 세 번째 분야는 주(州)에 대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공무원들은 정치인을 위한 주(州) 학교를 마쳐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분야의 공직자들에게는 정치인을 위한 학위가 요구되지 않으며, 그러한 공직자들은 전적으로 임명되는 방법으로 정해진다. 그들은 정부의 관리-행정적 수용능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학식 있는 전문인들에

의해서 배출된, 보좌관관계, 비서관 그리고 기술 책임자들의 사소한 자리들을 대표한다.

72:8.3 (816.8) 지방 재판소와 주(州) 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정치인을 위한 주(州) 학교의 학위를 갖고 있다. 사회와 교육 그리고 산업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재판관들은 지역 학교의 학위를 보유한다. 연방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정치인을 위한 이 세 학교들의 학위를 모두 가져야만 한다.

72:8.4 (817.1) 2. 철학 학교들. 이 학교들은 철학을 연구하는 사원(寺院)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공 기능으로써 종교와 다소 연관되어 있다.

72:8.5 (817.2) 3. 과학 교육 기관들. 이 기술학교들은 교육 체계 보다는 산업체와 조화-협동하고 있으며, 15개 분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72:8.6 (817.3) 4. 전문적인 훈련 학교들. 이 특수 교육기관들은 12개에 달하는 다양하고 박식한 전문인들을 위한 기술 훈련을 제공한다.

72:8.7 (817.4) 5. 육군 그리고 해군 학교들. 국가 본부 근처와 25개의 연안 지역에 있는 육군 중심지들에는,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자원하는 시민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키기 위한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다. 25세가 되기 전에 이 학교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만 한다.

제 9 장. 보통 선거권의 계획

72:9.1 (817.5) 비록 전체 공공 직책의 후보자들이 정치인들을 위한 주(州), 지역, 또는 국가 학교를 졸업한 자들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이 나라의 진보적 영도자들은 전체 국민의 투표를 위한 자기들의 계획이 심각하게 미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약 50년 전에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갖춘 개선된 투표 방식을 위한 입법화된 규정을 제정하였다:

72:9.2 (817.6) 1.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들 각자는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이 나이에 도달하면, 모든 시민들은 반드시 두 가지 투표 집단의 회원권을 획득해야만 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 기능—산업, 전문직, 농업, 또는 무역—에 따라서 첫 번째 집단에

들어가며; 정치적, 철학적, 그리고 사회적 성향에 따라서 두 번째 집단에 소속된다. 그리하여 모든 직원들은 경제적 투표권을 갖는 집단에 소속되고, 이 조합들은, 비경제적 관계적-연합들과 마찬가지로, 삼중적으로 힘이 분리된 국가 정부와 아주 흡사하게 규제된다. 그 집단들에 대한 등록은 12년 동안 바꿀 수 없다.

72:9.3 (817.7) 2. 사회를 위하여 많은 봉사를 하였거나, 정부 업무에 있어서 비범한 지혜를 실증하여 온 개별존재들은, 주지사 또는 지역 집행자들에 의해서 지명되고 지역 최고협의회들에 의해서 위임을 받음으로써, 최대로 매 5년마다 추가적인 투표권이 그들에게 부여될 수 있는데 그러한 특별 참정권들은 9개를 초과할 수 없다. 복합 투표자의 최대 투표권은 10개이다. 과학자들, 발명가들, 선생들, 철학자들, 그리고 영도자들 역시 증강된 정치 권한이 인정되고 명예를 받는다. 이러한 진보적인 시민 특권들은, 학위가 특별 대학들에 의해서 수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州)와 지역 최고협의회들에 의하여 수여되며, 받는 자들은 자신들의 개인 경력 표에 다른 학위들과 함께 그러한 시민 표창에 대한 표시를 첨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72:9.4 (817.8) 3. 광산에서 강제적으로 노동하도록 선고를 받은 모든 개별존재들과 세금에 의해서 유지되는 모든 공무원들은 그러한 봉사 기간 동안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이것은 65세에 은퇴 연금을 받으면서 퇴직할 노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72:9.5 (817.9) 4. 매 5년마다 기간 중에 지불한 연간 평균 세금을 반영한 다섯 계층의 투표권이 있다. 세금을 많이 낸 자들은 5개까지 추가 투표권이 허락된다. 이러한 인정은 다른 모든 공적과는 관계없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누구든지 10개를 넘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72:9.6 (818.1) 5. 이러한 참정권 계획이 채택됨과 동시에, 지역적인 투표 방식은 경제적 또는 기능별 체계로 대체되었다. 모든 시민들은 현재 산업적인, 사회적인, 또는 전문적인 집단들에 소속된 회원으로서 투표한다. 그리하여 선거인은, 정부로부터 위탁되고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자기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있도록 선출하는 단결되고, 통합되고, 지능적인 집단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능별 또는 집단별 투표 방식에 예외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매 6년마다 선출되는 연방

정부의 우두머리 집행자는 전국적인 투표로 결정하며, 어떤 시민도 한 표 이상을 행사하지 못한다.

72:9.7 (818.2) 그리하여, 우두머리 집행자 선거를 제외하고는, 투표가 경제적, 지적, 사회적 시민 집단에 의해서 시행된다. 이상적인 주(州)는 유기체적인 것이고, 자유롭고 지능적인 모든 시민 집단들이 거대한 정부 조직체 속에서 생동적이고 기능적인 기관을 대표한다.

72:9.8 (818.3) 정치인을 위한 학교들은, 모든 정신장애자, 게으른 자, 무관심한 자, 또는 죄를 지은 개별존재들에게서 투표권 박탈을 목적으로 주(州) 재판소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사람들은, 국민의 50퍼센트 이상이 열등하거나 결함을 갖고 있고 그들이 투표권을 가질 때에는 그런 나라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평범이 지배하면 어떤 나라든지 망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 투표는 강제 규정이며,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는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제 10 장. 범죄 다루기

72:10.1 (818.4) 범죄, 정신 이상, 퇴행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의 방법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요구되지만,

다른 면에서는 대부분의 유란시아인 들에게 충격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평범한 죄수들과 정신병자들은 성별(性別)로 서로 다른 농업 거류지역에 배치되며 자아-공급 보다 좀 더 남는다. 보다 심각한 상습적 범죄자들과 불치의 정신 이상자들은 재판소들에 의하여 가스실에서의 사형을 선고 받는다. 살인범 이외에도, 정부의 신뢰를 배반한 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범죄자들에게도 사형이 집행되며, 공의(公義)의 심판은 확실하고도 신속하다.

72:10.2 (818.5) 이 사람들은 법의 부정적 시대에서 벗어나와 긍정적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 최근에 그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주요 범죄를 저지른다고 잠재적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격리된 거류지역에서 일생을 봉사하도록 선고함으로서 범죄를 방지하려 시도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만일 그러한 죄수들이 좀더 정상으로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실증하게 되면, 그들은 가석방되거나 아니면 사면될 수도 있다. 이 대륙에서의 살인율은 다른 나라들에서의 비율의 1퍼센트에 불과하다.

72:10.3 (818.6) 범죄와 정신 이상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100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이미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고

있다. 그곳에는 정신 이상자들을 위한 감옥이나 병원이 없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곳에는 이러한 집단들이 유란시아에서 발견되고 있는 숫자의 10퍼센트에 불과한 정도만 존재하고 있다.

제 11 장. 군사적 준비

72:11.1 (818.7) 연방 군사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과 체험에 따라서, 국가적 국방 위원회의 위원장에 의해 7개 계급의 "문명의 수호자들"로 임명될 수 있다. 이 협의회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고 가정 재판소와 최고 교육 재판소 그리고 최고 노동 재판소에 의해 지명되고,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승인되며, 조화-협동된 군사적 관련사들의 참모장에 의해서 직권에 따라 통솔된다. 그러한 요원들은 70세가 될 때까지 복무한다.

72:11.2 (819.1) 그렇게 임명된 장교들이 이수해야 할 과정의 기간은 4년이고, 어떤 종류의 무역 또는 전문직과 반드시 관련되어 있다. 산업학교나 과학학교 또는 전문적인 학교수업과 의 이러한 연관 없이는 군사 훈련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군사 훈련이 완결되어질 때, 각 개별존재는 자신의 4년 과정 기간에, 역시 똑같이 모두 4년

과정인 특수학교에서 과정의 하나로서 교육의 절반동안 받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남자들의 대다수에게 기술훈련이나 또는 전문훈련을 교육의 절반으로 확보하는 동안, 자립하도록 하는 이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 군사 과정의 창조는 피해진다.

72:11.3 (819.2) 평화 시의 군 봉사는 순전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분야의 봉사에 편입된 사람들은 4년 동안 근무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각 사람은 군사적인 전술학을 전공하는 이외에 어떤 특별한 계통의 공부를 하게 된다. 음악 훈련은 그 대륙의 가장자리에 흩어져 있는 25개의 훈련소와 중앙 군사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오락들 중의 하나이다. 산업이 활발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는 수천 명의 실직자들이, 육지와 바다 그리고 공중에서 그 나라의 군사 방어력을 제고(提高)시키는 일에 자동적으로 활용된다.

72:11.4 (819.3) 비록 이 사람들이 주변의 호전적인 민족들에 의한 침략에 대응하는 방어 수단으로 강력한 전쟁 체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지난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군사 자원들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신용도는 가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전쟁 수행 능력을 호전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채로 문명을 활기차게 방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문명화 되었다. 그 대륙의 주(州)들이 연합을 이룬 이래로 내란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난 두 세기 동안 아홉 차례에 걸친 맹렬한 방어 전투를 치러야만 하였는데, 그 중에 세 번은 세계 강대국들의 강력한 동맹체와의 싸움이였다. 비록 이 나라가 호전적인 이웃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적절한 방어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나라는 정치인들과 과학자들 그리고 철학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72:11.5 (819.4) 전 세계가 평화로울 때에는,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방어용 장비들이 모두 무역과 상업 그리고 오락을 위해 사용된다. 전쟁이 선포되면 전체 국가가 동원된다. 전쟁이 계속되는 전체 기간 동안에는 군인들이 모든 산업을 장악하고, 모든 무리 조직의 우두머리들이 우두머리 집행자의 내각의 일원이 된다.

제 12 장. 다른 나라들

72:12.1 (819.5)

이러한 독특한 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와 정부가 여러 면에서 유란시아에 있는 나라들의 그것들보다 우월하다 하더라도, 다른 대륙들(이 행성에는 11개가 있다) 위에 존재하고 있는 정부들은 유란시아에 있는 비교적 진보된 국가들에 비하여 명백하게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72:12.2 (819.6)

바로 이 순간에, 뛰어난 이 정부는 뒤쳐진 민족들과 대사(大使) 관계를 수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처음으로 이 주변 국가들에게 선교사들을 보내도록 주장하는 위대한 종교 영도자 한 사람이 출현하였다. 우리는 그들이 다른 종족들에게 하나의 우월한 문화와 종교를 강요하려 노력해 왔을 때, 것처럼 많은 다른 이들이 저질렀던 오류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만약에 이 대륙 국가가 단순히 이웃 민족들에게로 가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 데리고 온 후에, 그들을 교육시키고, 문화 대사 자격으로 그들을 다시 그들의 미개한 형제들에게로 보낸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 이 세계에 벌어지겠는가! 물론 진보된 이 나라에 치안법관 아들이 곧 도래한다면, 엄청난 일들이 이 세계에 신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72:12.3 (820.1) 이웃에 있는 행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련사들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유란시아에 있는 정부의 진화를 증강시키고 문명을 향상시키려는 의도에서 특별한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분명히 유란시아인 들의 흥미를 돋우고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전할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시된 허용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72:12.4 (820.2) 아무튼, 유란시아인 들은 사타니아 가족에 속한 그들의 자매 구체가, 그 어떤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치안법관 임무나 증여 임무에 의한 이득도 얻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유란시아의 여러 민족들은 그 누구도, 대륙 국가를 그 행성의 동료들로부터 분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문화의 불균형 때문에 서로가 나뉘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72:12.5 (820.3) 진리의 영을 부어주는 일은, 증여된 세계의 인간 종족들에게 크게 진전된 유익을 실현시키는 영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유란시아는 법, 절차들, 상징들, 관습들, 그리고 언어를 통하여 행성 정부를 더욱 가까운 장래에 실현할 수 있도록 훨씬 잘 준비되어

있다—그 모든 것들은 법에 의거한 범세계적 평화 수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언젠가는 실제적인 영적 분투의 시대가 태동되도록 인도할 것이며, 그러한 시대는 그 행성이 빛과 생명의 이상적인 시대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된다.

72:12.6 (820.4)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서 제시됨]

제 73 편 에덴 동산

73:0.1 (821.1) 칼리가스티아의 몰락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유란시아에서의 문명의 퇴보와 영적 궁핍을 야기했지만, 그 민족들의 육체적이거나 생물학적인 국면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칼리가스티아와 달리가스티아의 불만에 의해 즉각적인 영향을 받았던 그런 문화와 도덕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기체적 진화는 그것들과는 상관없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행성 역사에 한 시기가 도래하였는데, 약 40,000년 전, 임무수행 중에 있던 생명운반자들은, 순수한 생물학적 입장에서만 보자면, 이제 유란시아 인종들의 진보 단계가 거의 정점에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멜기세덱 접수자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생명운반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그들은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에게 생물학적 제고자인 한 쌍의 물질아들과 딸을 파견시킬 수 있는 장소로 유란시아가 적합한 상태에 있는지를 면밀히 검열해 달라는 탄원서를 올렸다.

73:0.2 (821.2) 이 탄원서는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에게 제출되었는데, 왜냐하면 칼리가스티아의 몰락과 예루셈에서의 일시적인 권력 공백이 유란시아의 대부분의 관련사들을 에덴시아의 지고자들로 하여금 직접 다스리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73:0.3 (821.3) 그래서 이러한 십진(十進)법 소수의 즉 실험 세계 계열의 주권적 감독자인 타바만시아가 행성을 검열하기 위하여 도착하였으며, 인종 진화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그는 유란시아가 물질아들들에게 적합한 행성이라는 사실을 정식으로 추천하였다. 이 검열이 있는 뒤 100년이 조금 못되었을 때, 지역체계의 물질아들과 딸인 아담과 이브가 도착하였으며, 그들은 반란과 영적 격리의 금지령 아래에서 휴면 상태로 정체되어 있던 한 행성의 혼잡한 관련사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려운 과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제 1 장. 낫-사람들과 아마돈-사람들

73:1.1 (821.4) 정상적인 행성에 물질아들이 출현하였다는 사실은 대개 발명과 물질적 진보 그리고 지적 깨우침에 있어서 위대한 시대가 가까웠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아담의-이후의 시대는 대부분의 세계들에서 고도의 과학 문명시대에 해당되었지만, 유란시아의 경우는 달랐다. 비록 유란시아가 신체적으로는 적합한 인종들로 채워졌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야만과 도덕적 부패의 수렁에서 시달리고 있었다.

73:1.2 (821.5) 반란이 있은 후 10,000년이 지나자, 영주의 관리-행정이 달성하였던 모든 진보는 실천적으로 소멸되어 버렸으며; 그 세계의 인종들에게는 이 잘못 인도된 아들이 유란시아로 오지 않았던 것과 별 차이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오직 낫-사람들과 아마돈-사람들만이 달라마시아의 전통들과 행성영주의 문화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73:1.3 (821.6) 낫-사람들은 영주의 참모진 중에서 반란을 일으킨 요원들의 후손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자신들의 첫 번째 영도자인 낫에서 왔는데, 낫은 한 때 산업과 무역을

담당하는 달라마시아 위원회의 의장이었다. 그리고 아마돈-사람들은 반과 아마돈을 추종하였던 안돈-사람들의 후손이었다. "아마돈 자손"이라는 이름은 종족의 명칭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이면서 종교적 명칭으로서, 인종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안돈-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낯-사람은 문화적 명칭이자 동시에 종족 명칭이다; 낯-사람들 자체가 유란시아의 8번째 인종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73:1.4 (822.1) 낯-사람들과 아마돈-사람들 사이에는 해묵은 적대감정이 있었다. 이 반목은 두 집단의 자손들이 어떤 공통적인 사업에 참여하게 될 때마다 계속 표면으로 나타났다. 후일 에덴의 관련사들을 할 때에도 평화롭게 같이 일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힘든 것이었다.

73:1.5 (822.2) 달라마시아의 붕괴 이후 얼마가지 않아서 낯의 추종자들은 주로 세 집단으로 나뉘어졌다. 중앙에 위치한 집단은 페르시아 만의 상류 부근인 그들의 기원적 고향 바로 옆에 자리 잡았다. 동쪽에 위치한 집단은 유프라테스 계곡의 동쪽에 있는 엘람고원으로 이주하였다. 서쪽에

위치한 집단은 지중해와 인접 지역에 있는 시리아의 북동 연안에 자리 잡았다.

73:1.6 (822.3) 이들 낯-사람들은 산악 종족과 자유롭게 짝을 지었고 유능한 자손들을 남겼다. 그리고 반란에 가담하였던 달라마시아인 들의 후손들 중 일부가 뒷날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들에서 반과 그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과 합세하였다. 반 호수와 남쪽 카스피 해 지역 부근인 이곳에서 낯-사람들은 아마돈-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았으며, "옛 거인들" 중에 속하였다.

73:1.7 (822.4) 아담과 이브의 도래 전까지는 이 집단들—낯-사람들과 아마돈-사람들—이 지상에서 가장 진보되고 개화된 인종들이었다.

제 2 장. 동산에 대한 계획

73:2.1 (822.5) 타바만시아의 검열이 있기까지 거의 100년 동안, 반과 그의 연관-동료들은 그들의 세계 윤리와 문명의 본부인 고원지대에 거하면서, 인종적 향상자이며 진리의 선생이며 반역한 칼리가스티아를 대신할 귀중한 계승자인, 약속된 하느님의 아들의 출현을 전파해 왔다. 비록 당시 세계의 거주민들 대다수가 그런 예고에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과 아마돈 측근의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었고 그래서 약속된 아들의 실재적인 영접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73:2.2 (822.6) 반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연관-동료들에게 예루셈의 물질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것은 자기가 유란시아에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는 이 아담의 아들들이 항상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동산에 있는 집에서 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는 아담과 이브가 도래하기 83년 전에 그들의 도래를 선언하는 일과 그들을 영접하기 위한 동산의 거처를 마련하는 일에 헌신하자고 제안하였다.

73:2.3 (822.7) 고원(高原)에 있는 그들의 본부와 멀리까지 산재해 있는 61개의 정착지들로부터, 반과 아마돈은 3천 명이 넘는 자원하는 열성적인 일꾼들을 모집해서 하나의 단체를 조직하였는데, 그들은 이 엄숙한 집회에서 약속된—적어도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아들을 위해 준비하는 사명에 전념하였다.

73:2.4 (822.8) 반은 그 지원자들을 100개의 무리들로 나누고 각 무리마다 한 명의 지휘관을 두었으며, 각 부대마다 한 명씩 자기가 직접 관할하는 참모를 세워 연락 책임자로 삼았고, 아마돈을 자신의 동반자가 되게 하였다. 이 위원회들은 모두 열심히 기초 작업을 시작하였고, 동산의 지리적 위치를 물색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즉시 이상적인 지점을 찾아 나섰다.

73:2.5 (822.9) 비록 칼리가스티아와 달리가스티아는 사악함 때문에 자신들의 힘을 거의 다 빼앗긴 상태에 있었지만, 동산을 준비하는 작업을 좌절시키고 방해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사악한 음모는 이 기획을 진행해나가기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하는 거의 만 명에 달하는 충성스러운 중도 창조체들의 신실한 활동에 의해서 크게 약화되었다.

제 3 장. 동산의 위치

73:3.1 (823.1) 위치를 정하기 위한 위원회는 거의 3년간을 그들의 기지 밖에 나가 있었다. 세 군데의 가능한 장소들을 물색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첫째는 페르시아 만의 어떤 섬이었고; 그 다음은 나중에 두 번째 동산으로 사용된

강의 하구였으며; 세 번째는 지중해의 동쪽 연안에서 서쪽 방향으로 돌출된 좁고 기다란—거의 섬에 가까운—반도였다.

73:3.2 (823.2) 그 위원회는 거의 만장일치로 세 번째 지역을 채택하였다. 이 위치가 선정되고 난 후에 생명나무를 포함한 세계의 문화 기지를 이 지중해 반도로 이전하는데 2년이 걸렸다. 반과 그의 동료들이 도착하였을 때, 한 집단을 제외한 반도의 모든 거주민들은 평화적으로 그 지역을 떠나갔다.

73:3.3 (823.3) 이 지중해 반도는 쾌적한 기후와 일정한 온도를 이루었다; 이러한 안정된 기후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산 때문이었고 이 지역이 실질적으로 내륙 바다 안에 있는 하나의 섬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주변에 있는 고원지대에는 비가 많이 왔지만, 에덴에는 비가 내리는 일이 드물었다. 그러나 매일 밤, 인공 관개 수로의 광범위한 망으로부터 “안개가 피어올라” 동산에 식물들을 새롭게 하였다.

73:3.4 (823.4) 이 육지의 해안선은 상당히 높이 솟아 있었고, 본토와 연결된 목 부분은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겨우

43킬로 미터였다. 동산에 물을 공급하는 큰 강은 반도의 더 높은 지대로부터 내려왔고 그리고 반도의 목 부분을 통과하여 동쪽으로 흘렀고 그리고는 그곳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의 저지대를 가로질러, 그 너머의 바다로 이르렀다. 이 강은 에덴의 반도 해안 언덕에서 기원을 가지는 네 개의 지류로부터 물을 받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에덴에서 나간” 강의 “네 개의 수원(水源)”이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두 번째 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강의 지류들과 혼동되었다.

73:3.5 (823.5) 동산을 둘러싼 산들에는 진귀한 돌들과 금속이 풍부했지만, 그것들은 거의 주목을 받지 않았다. 사람들의 지배적인 관념은 원예를 영화롭게 하고 농업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73:3.6 (823.6) 동산으로 선정된 지역은 아마도 모든 세계에서 그런 목적을 위한 장소로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을 것이며, 기후도 이상적이었다. 이렇게 완전하게 식물들의 파라다이스라고 부를 만한 곳은 지구상의 그 어디에도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집결지로 유란시아 문명의 정수(精髓)가 모아졌다. 그것이 없고 그 너머의 세계는

아직도 여전히 어둠과 무지와 야만의 상태에 처해 있었다. 에덴은 유란시아에서 한 점의 빛나는 장소였으며;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아름다운 꿈이 되었고, 곧 한편의 절묘한 시(詩)가 되었으며 완벽한 절경의 광채를 이루었다.

제 4 장. 동산을 세움

73:4.1 (823.7) 생물학적 제고자들인 물질아들이 진화의 세계에서 거주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거주지는 종종 에덴동산이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그 별자리의 수도인 에덴시아의 아름답고 화려한 꽃과 나무들의 장엄미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반은 이 관습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들에 맞추어 반도 전체가 동산을 이루도록 꾸몄다. 그리고 목초와 동물 사육은 본토(本土)와 인접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다. 동물 중에서는 단지 새들과 여러 다른 종류의 가축들만이 그 공원 안에 거하도록 하였다. 반의 지시에 따라 에덴은 하나의 동산으로 꾸며졌고, 그것은 하나의 정원에 지나지 않았다. 어떤 동물도 동산 안에서는 살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것이 건설되는 기간 내내, 동산의 일꾼들이 먹었던 모든 고기는 본토에서 사육된 소 떼들로부터 조달되었다.

73:4.2 (824.1) 첫 번째 과제는 반도의 목 부분을 가로지르는 담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일단 완성되자, 실제적인 조경 작업과 보금자리 건설이 방해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다.

73:4.3 (824.2) 동물을 키우는 정원은 기준 성벽의 바깥쪽에 바로 이어서 좀 더 작은 성벽을 세움으로서 조성되었다; 그 사이의 공간은 적의 공격에 대비한 추가적인 방어수단으로 이용된 온갖 종류의 맹수들로 채워졌다. 이 동물원은 크게 12개로 대 구획으로 조직되었고 나뉘어 있었고, 이 집단들 사이에 담으로 만든 통로가 있어서 이것들이 동산의 12개의 대문, 강 그리고 중앙지역을 차지하는 강에 인접한 목초지로 인도했다.

73:4.4 (824.3) 동산을 준비하는 일에는 오직 자원하는 일꾼들만 고용되었고, 어떤 강제적 고용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동산을 경작하였고,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가축 떼를 돌보았으며, 인근의 믿는 자들로부터 식량의 기부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어수선한 시절에 세계의 혼잡스러운 상태에 따르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사업은 완성될 때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73:4.5 (824.4) 그러나 반은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는 아들과 딸이 얼마나 빨리 오게 될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도래가 연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작업을 계속 이끌어나가기 위한 젊은 세대들의 훈련을 제의하였는데, 이것은 사람들을 크게 낙심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반의 태도는 그의 신앙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게 하였고, 이로 인해 상당한 문제들이 야기되었으며 많은 이탈자들이 뒤따랐지만; 반은 준비된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이탈자의 자리들을 젊은 자원자들로 대신 메워나갔다.

제 5 장. 동산 가정(家庭)

73:5.1 (824.5) 에덴 반도의 중심에는 동산의 신성한 성역인 절묘한 석조의 우주 아버지 성전(聖殿)이 있었다. 북쪽에는 행정-관리적 본부가 건립되었고; 남쪽에는 일군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집들이 세워졌으며; 서쪽에는 도래할 아들의 교육 체계를 위하여 계획된 학교를 세울 땅으로 분할되어 제공되었고, 반면에 '에덴의 동쪽'에는 약속된 아들과 그의 직접적인 후손들을 위해 계획된 주거지가 건설되었다. 에덴을 위한 고안건축

설계에는 백만 명의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충분한 집과 땅이 할당되어 있었다.

73:5.2 (824.6) 아담이 도착할 무렵, 비록 동산은 4분의 1밖에 완결되지 않았지만, 수천 마일의 관개 수로와 12,000마일의 포장도로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 구역에는 5,000채가 넘는 작은 벽돌집들이 있었으며, 나무와 식물들은 거의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 공원 안에 있는 각 군(群)마다 집들의 수는 일곱 채를 넘지 않았다. 그리고 동산의 건축물들은 비록 단순한 형태였지만, 가장 예술적이었다. 크고 작은 도로들이 건설되었고 풍치는 절묘하였다.

73:5.3 (824.7) 동산의 정화시설은 전에 유란시아에서 시도되었던 어떤 것보다 훨씬 진보된 것이었다. 에덴의 음료수는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위생 규정을 엄격히 감시함으로써 위생적으로 유지되었다.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일어난 것은 이 규칙들을 소홀히 한 때문이었지만, 반은 동산의 공급수 속에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의 측근들에게 점차적으로 인식시켰다.

73:5.4 (825.1) 나중에 하수처리 체계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에덴-사람들이 모든 쓰레기와 부패물들의 철저한 매장을 실천하였다. 아마돈의 검열자들은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살피기 위해 매일 자기들의 구역을 순찰하였다. 서기 19세기 또는 20세기의 후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유란시아인들이 질병의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자각하지 못하였다. 아담의-통치체제가 붕괴되기 전에는 덮개를 씌운 하수도 체계가 울타리들 아래로 흘러서 동산의 외벽 또는 낮은 벽에서 거의 1마일 가량 떨어진 에덴의 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73:5.5 (825.2) 아담이 도착할 무렵 에덴에는 세계 각 지역의 식물들 대부분이 자라고 있었다. 많은 종류의 과일과 곡류와 견과류들이 이미 크게 개량되어 있었다. 오늘날 볼 수 있는 채소류와 곡류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재배되었지만, 나중에는 여러 종류의 식용 식물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73:5.6 (825.3) 동산의 식물 중 5퍼센트 정도는 고도의 기술적 재배를 통한 것이었고, 15퍼센트는 부분적으로 재배되는 것이었으며, 나머지는 대체로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아담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담의 생각에 따라서
완결되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73:5.7 (825.4) 그리하여 에덴동산은 약속된 아담과 그의
반려자를 영접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리고 이 동산은 완전해진 관리-행정과 정상적인 통제를
갖춤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의 영광을 이루게 되었다.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개인적 거주지를 꾸미는 데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한 수정을 하였지만, 에덴에 대한 전체
계획에 매우 만족스러워하였다.

73:5.8 (825.5) 아담이 도착할 무렵까지 마지막 장식 작업이 거의
완결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이미
보석으로 장식한 것처럼 식물들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에덴에 머무르던 초기 시절 동안 동산 전체는
새로운 형태를 갖추었고 아름답고 웅장한 새로운 조화가
이루어졌다. 그토록 아름답고 풍부한 원예와 농업의
전시장은 유란시아에서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제 6 장. 생명나무

73:6.1 (825.6) 반은 오랫동안 지켜온 생명의 나무를 동산 성전의
중앙에 심었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과실은 그것을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상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반은 아담과 이브가 일단 유란시아에 물질적 형태로 도래한 후에는, 그들도 역시 생명 유지를 위해서 에덴시아의 이 선물에 의존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73:6.2 (825.7) 물질아들들은 그 체계에 있는 수도에서는 생존을 위하여 생명나무가 필요하지 않았다. 다만 행성에서의 재(再)개인성구현에서 물리적 불멸을 위해 그들은 이 보조물에 의존하게 된다.

73:6.3 (825.8)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다양한 인간 체험을 망라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용어의 정의일 수도 있지만, “생명나무”는 신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였고 오랫동안 유란시아에 제시되어 있었다.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이 칼리가스티아를 유란시아의 행성영주로 그리고 100명의 예루셈 시민들을 그의 행정-관리적 직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승인하였을 때, 에덴시아의 어떤 관목이 멜기세덱들에 의해 행성으로 보내졌으며, 그 식물이 유란시아에서 자라나서 생명나무가 되었다. 지능이 없는 이 생명 형태는 별자리 본부 구체에 태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하보나 천체뿐만 아니라 지역우주나 초(超)우주들의 본부 세계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체계의 수도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73:6.4 (826.1) 이 초(超)식물은 동물 실존에서의 노화(老化)-발생 요소를 해독하는 작용을 가진 특정한 공간-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었다. 생명나무의 과실은, 그것을 먹으면 신비하게도 생명을 연장시키는 우주의 기세가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초(超)화학적 축전지와 같았다. 이러한 영양물은 유란시아에 있는 일반적인 진화적 존재들에게는 아무런 효과를 주지 않지만, 특별히 100명의 물질화된 칼리가스티아의 참모진들에게 작용할 수가 있었으며, 그리고 영주의 신하들에게 자신들의 생명 원형질을 기여했던 100명의 변경된 안돈-사람들에게도 작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생명 원형질을 기여한 대가로 자신들의 필사자 실존을 무기한 연장하기 위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생명 보완물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다.

73:6.5 (826.2) 영주의 통치 기간 동안 그 나무는 아버지를 경배하는 성전 중앙인 원형의 정원에서 자라고 있었다.

반란이 일어나자 그것은 반과 그의 측근들에 의해 중앙
핵심으로부터 그들의 임시 막사로 옮겨졌다. 이 에덴시아
나무는 나중에 고원에 있는 그들의 은거지로 다시
옮겨졌는데, 거기에서 반과 아마돈은 15만년 이상이나 그
나무의 혜택을 입고 있었다.

73:6.6 (826.3) 반과 그의 연관-동료들이 아담과 이브를 위한
동산을 준비하면서, 그들은 그 에덴시아의 나무를
에덴동산에 옮겨 심었는데, 그것은 아버지를 모시는 또
다른 성전 중앙인 원형의 정원에서 다시 한 번 자라게
되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이원적(二元的)
형태의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그
과일을 먹었다.

73:6.7 (826.4) 물질아들의 계획이 빛나간 길로 들어섰을 때,
아담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그 나무 핵심을 동산으로부터
옮겨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에덴으로 침범해 온 낯-
사람들은 "그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하느님들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무는 아무런 방어도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그 과실들을 자유로이 따먹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데; 그들은 모두 그 세계의 물질적 필사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에게는 그 나무의 과실이 보완물로서 작용될 만한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생명나무로부터 약효를 섭취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격분하였으며, 결국에는 내란이 일어나 성전과 나무가 모두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 후일에 동산이 물에 가라앉을 때까지 오직 돌 벽만이 서 있었다. 이것이 아버지를 모시는 성전의 두 번째 소멸이었다.

73:6.8 (826.5) 그리하여 이제는 유란시아의 모든 육체적 존재들이 삶과 죽음이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겪게 되었다.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과 모든 친족들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소멸해 갔고, 유란시아의 사람들은 물질적 죽음 이후에 맨션세계 부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우주의 상승 계획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제 7 장. 에덴의 숙명

73:7.1 (826.6) 아담이 첫 번째 동산을 떠나 간 후에, 그것은 낫-사람들과 쿠트-사람들과 순트-사람들에 의해 점령되었다. 그것은 나중에 아담-사람들과 협조하기를 거부한 북쪽에 있는 낫-사람들의 거주지가 되었다. 반도는 아담이 동산을

떠난 뒤 거의 4천년 동안 열등한 계급의 노-사람들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둘러싸고 있는 화산의 격렬한 활동과 아프리카에 이르는 시칠리아 육교의 침수와 관련하여, 지중해 동쪽 지반이 물속에 잠기게 되었는데, 에덴 반도 전체도 함께 물속에 가라앉았다. 이러한 광대한 지역이 침수됨에 따라 지중해 동쪽 해안선이 크게 융기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유란시아에서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천연적인 창조물의 종말이기도 하였다. 그 침몰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으며, 반도 전체가 완벽하게 가라앉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다.

73:7.2 (827.1) 우리는 동산의 사라짐이 신성한 계획을 잘못 수행한 어떤 결과라거나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오류의 결과라고는 보지 않는다. 우리는 에덴의 침몰을 자연발생적인 것 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간주하지 않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세계 인종들을 부흥시키는 일을 이루기 위한 보라색 인종의 비축 인원이 축적된 시기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동산의 침몰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73:7.3 (827.2) 멜기세덱들은 아담 가족의 수가 50만 명이 될 때까지는 아담에게 인종 개량을 위한 혼혈 계획에

개입하지 않도록 조언하였다. 동산이 아담-사람들만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야 한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 전체에 새로운 생명을 주는 사자들이 될 예정이었다; 이 세상의 궁핍한 인종에게 사심-없이 증여하도록 동원될 예정이었다.

73:7.4 (827.3) 멜기세덱들이 아담에게 준 지시들 속에는, 아담이 인종별로, 대륙별로, 그리고 분야별로 본부들을 세워서 그의 직계 아들과 딸들에게 맡기고, 그와 이브는 세계 전역에 생물학적 향상과 지적인 성장 그리고 도덕성의 부흥을 꾀하는 일에 충고자와 조화-협동자가 되어 이들 여러 나라들의 수도들 중에서 자신들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73:7.5 (827.4) [“동산의 음성” 세라핌천사인, 솔로니아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74 편 아담과 이브

74:0.1 (828.1) 아담과 이브는 서기1934년을 기준으로 할 때, 37,848년 전에 유란시아에 도착하였다. 그들이 도착하였을 때는 동산의 꽃이 절정에 이른 한 여름이었다. 정오에, 예보도 없이, 두 명의 세라핌천사 운송자들이 유란시아의

생물학적 제고자 수송 임무를 맡은 예루셈 요원들을 동반하고, 자전하는 행성 표면 위로, 우주 아버지의 성전 근방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아담과 이브의 육체들을 재(再)물질화하는 모든 작업이, 새롭게 지어진 이 성전의 구역 안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지 10일이 지나서야, 그 세계의 새로운 통치자로 소개될 수 있는 이원적(二元的) 인간 형태로 재창조되었다. 동시에 그들의 의식도 되돌아왔다. 물질아들들과 딸들은 언제나 함께 봉사한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결코 따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봉사에 임한다. 그들은 한 쌍으로 일하도록 만들어졌으며; 홀로 기능을 발휘하는 일은 거의 없다.

제 1 장. 예루셈에서의 아담과 이브

74:1.1 (828.2) 유란시아에 온 행성 아담과 이브는 예루셈에 있는 물질아들들의 선임 무리단의 대원들이었으며, 그들의 공동번호는 14,311 이었다. 아담과 이브는 세 번째 물리적 계열에 속해 있었으며 신장은 8피트보다 약간 컸다.

74:1.2 (828.3) 아담이 유란시아로 가도록 선정되었을 때, 그는 그의 반려자와 함께 예루셈의 신체시험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15,000년 이상 동안, 그들은 생체형태의 변경에 적용될 실험용 에너지부서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보다 오래 전에는, 예루셈에 새로 도착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시민권 학교 교사들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뒤이은 유란시아에서의 그들의 행위성에 대한 서술함에서 참고가 되도록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74:1.3 (828.4) 유란시아에서 아담의-모험여행 임무를 위한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발표가 있게 되자, 물질아들들과 딸들로 구성된 선임 무리단 전체가 지원하였다. 멜기세덱 시험관은 라나휘지와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이 동의를 얻어, 후일에 유란시아의 생물학적 향상자로서 일할 아담과 이브를 최종적으로 선발했다.

74:1.4 (828.5) 아담과 이브는 루시퍼의 반란 중에도 미가엘에게 충성스러운 존재로 남아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한 쌍은 시험과 교육을 위해 그 체계 주권자와 그의 내각 전체 앞으로 소환되었다. 유란시아의 세부적인 관련사들이 충만하게 제시되었고, 그들은 투쟁으로 분열된 그러한 세계의 통치자관계의 책임을 받아들이기 위해 짜인 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다. 그들은

에덴시아의 지고자들과 구원자별의 미가엘에게 충성하겠다는 공동 맹세를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통치 정부가 그들에게 주어진 세계의 주권의 양도가 적합하다고 결정할 시기까지는, 멜기세덱 접수자들로 구성된 유란시아 무리단에게 복종하도록 정식으로 충고를 받았다.

74:1.5 (829.1) 예루셈에서 선택된 이 한 쌍은 사타니아의 수도와 그 외 다른 곳에 100명의 자손—50명의 아들과 50명의 딸—을 남겨두었는데, 이들은 진보에서의 함정들에서 벗어난 훌륭한 창조체들이었고, 그들 부모가 유란시아로 떠날 때, 우주의 신임을 받는 충성스러운 관리자로서 임무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증여를 수락하는 마지막 예식과 연관된 이별식에 참가하는 물질아들들의 아름다운 성전에 참석하였다. 이 아이들은 자기 부모를 따라 그들 계층의 비(非)물질화 작업 본부까지 따라 갔고, 세라핌천사 운송자를 위한 준비에 앞서서 진행되는, 의식(意識)에서의 개인성 일탈 안에서 수면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성공을 빌면서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였다. 자녀들은 가족 만남에서 자신들의 부모가 곧 사타니아

체제의 606호 행성의 눈에 보이는 우두머리, 실체 안에서 유일한 통치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함께 즐겼다.

74:1.6 (829.2) 이렇게 아담과 이브는 시민들의 환호와 성공을-기원하는 속에서 예루셈을 떠났다. 그들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부딪히게 될 모든 의무와 위험에 관해서도 충분한 지도를 받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임무를 위해 출발하였다.

제 2 장. 아담과 이브의 도착

74:2.1 (829.3) 아담과 이브는 예루셈에서 깊은 잠에 들어갔었고, 유란시아에 있는 아버지의 성전 안에 깨어났을 때, 그곳에는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모인 거대한 무리들의 현존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두 존재들, 반과 그의 신실한 연관-동료인 아마돈과 직접 대면하게 되었다. 칼리가스티아를 밀어내는 일에 공헌하였던 이 두 영웅은 자신들의 새로운 동산 주택에서 그들을 맨 먼저 환영하였다.

74:2.2 (829.4) 에덴의 언어는 아마돈이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안돈족속의 방언이었다. 반과 아마돈은 새로운 24개의 알파벳을 사용해서 이 언어를 현저하게 개선시켰으며,

에덴의 문화가 세계로 퍼져 나갈 때 그것이 유란시아의 언어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아담과 이브가 예루셈을 출발하기 전에 이 인간 언어를 이미 충만하게 터득했었기 때문에, 이 안돈의-아들은 자기 세계에 대한 고귀한 통치자가 자기와 동일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74:2.3 (829.5) 그리고 그 날에는 에덴 전역에 대단한 흥분과 기쁨이 넘쳤고, 전령들은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 모여드는 소식 전달용 새들의 집결지로 급히 달려가서 이렇게 소리쳤다: “새들을 놓아주어라; 비둘기들로 하여금 약속의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라.” 신자(信者)들이 사는 수백 개의 마을들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수십 년간 착실하게 이 비둘기들을 사육해왔었다.

74:2.4 (829.6) 아담이 도착하였다는 소식이 널리 퍼지자 가까이 있는 수천 명의 부족민들이 반과 아마돈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순례자들이 아담과 이브를 환영하기 위하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아버지께 경배하기 위하여 몇 달 동안 계속하여 에덴에 몰려들었다.

74:2.5 (829.7) 아담과 이브는 깨어나자마자, 공식 환영행사를 위해 사원 북쪽에 있는 큰 언덕 위로 안내되었다. 자연적으로 생긴 이 언덕은 커지게 되었고, 온 세계의 새로운 통치자의 취임식을 위해 준비되었다. 유란시아 환영위원회는 사타니아 체계의 이 아들과 딸에 대한 환영행사를 이곳에서 정오에 가졌다. 아마돈은 이 위원회의 의장이었고 위원회는 여섯 개의 산각 종족들 각각의 대표들; 중도자들의 임시 지휘관; 낯-사람들의 충성스러운 딸이자 대표자인 안난; 동산의 고안건축가이자 건축자의 아들이며 사망한 자기 부친의 계획을 집행한 노아; 그리고 두 명의 거주하는 생명운반자를 포함해서 모두 12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74:2.6 (830.1) 다음 행사는 선임 멜기세덱이 아담과 이브의 행성 보호관리자의 역할을 맡는 예식이었고, 그는 유란시아에 있는 접수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우두머리였다. 물질아들과 딸은 놀라시아덱의 지고자들과 네바돈의 미가엘에게 충성을 맹세하였고 반은 그들을 유란시아의 통치자로 선언하였으며, 반은 멜기세덱 접수자들의 활동 덕분에 150,000년 동안 지녀온 직책을 아담과 이브에게 넘겨주었다.

74:2.7 (831.2) 세상의 통치자로서 공식적으로 취임하는 행사가 있었던 이 날, 아담과 이브에게는 왕의 예복이 입혀졌다. 달라마시아의 기예 모두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에덴의 시대에도 천을 짜는 실천 기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74:2.8 (830.3) 그 후에 천사장의 선포가 있었고, 가브리엘의 소식을 전하는 음성이 울려 퍼지면서 유란시아의 두 번째 심판이 선언되었으며, 사타니아의 606번 행성에 은총과 자비의 두 번째 섭리시대에서의 잠을 자고 있던 생존자들의 부활이 이루어졌다. 영주의 섭리시대가 지나갔고, 이제 세 번째 행성 신(新)시대인 아담의 시대가 단순하고 웅대한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이 행성에 대한 권위에 있어서 전임자의 협력 부족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범세계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유란시아의 새로운 통치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유리한 조건 속에서 그들의 통치를 시작하게 되었다.

제 3 장. 아담과 이브가 행성에 대해 배움

74:3.1 (830.4) 그리고 이제 그들의 공식적인 취임식이 끝나게 되자,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행성이 고립되어 있음을

고통스럽게 인식하였다. 익숙하였던 방송은 들리지 않았고 행성-외부와 통신하는 모든 순환회로들도 통하지 않았다. 다른 예루셈 친구들은, 이러한 세계들에서 갖는 초기 체험 동안, 잘 정립된 행성영주와,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고 그들에게 협력할 유능한 체험 있는 참모진과 함께 아무 문제없이 움직이는 세계들로 갔었다. 그러나 유란시아에서는 반란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이곳에는 행성영주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으며, 비록 악행으로 인하여 그의 힘의 대부분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담과 이브의 업무를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 위험스럽게 할 수도 있었다. 예루셈의 아들과 딸은 다음 날을 위한 계획을 의논하며 그 날 밤에 보름달 아래서 동산을 거닐 때, 심각하였고 환멸감에 차 있었다.

74:3.2 (830.5) 아담과 이브는 칼리가스티아의 배신으로 혼동되고 고립된 행성인 유란시아에서의 첫 날을 그렇게 보냈으며;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첫 번째 밤인 그 날 밤늦게까지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그리고 매우 외로운 밤이었다.

74:3.3 (830.6) 이 세상에서의 아담의 둘째 날은 행성 접수자들과 조연자 협의회와 모임을 가지면서 보냈다. 멜기세덱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로부터, 아담과 이브는 칼리가스티아의 반역에 관한 세부적인 것과 세상의 진보에 있었던 대변동의 결과를 더욱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가슴 아픈 이야기, 세상 관련사에서의 잘못된 운영에 대한 길고 상세한 이야기였다. 그들은 사회적 진화에서의 진보를 가속화하려는 칼리가스티아 계획의 철저한 붕괴에 대한 모든 사실도 들었다. 또한 그들은 진보의 신성한 계획과 독립적으로, 행성의 향상을 성취하려는 시도에서의 어리석음의 모든 실현에 들었다. 그리고 슬프지만 깨우치게 한 날—유란시아에서의 둘째 날—이 이렇게 끝났다.

74:3.4 (831.1) 셋째 날은 동산을 검열하면서 보냈다. 커다란 여객용 새—판도르—를 타고 하늘 위를 날아가면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인 광대하게 뻗어있는 동산을 내려다보았다. 검열을 단행한 이 날은, 에덴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이룩하는데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대한 연회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셋째 날에도 역시 밤늦게까지 동산을

거닐면서 자기들에게 닥친 막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74:3.5 (831.2) 넷째 날에는 아담과 이브가 동산의 군중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취임식 날 올라갔던 언덕 위에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세계를 재건할 그들의 계획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 방법들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그것에 의해서 그들은 죄와 반역의 결과로 추락된 낮은 차원으로부터 유란시아의 사회적 문명을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이 날은 하나의 위대한 날이었으며, 세상 관련사들의 새로운 관리-행정에서 일할 남자와 여자들을 선정해서 협의회를 만든 기념으로 열린 향연과 함께 끝났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이 집단에 있었다는 것과, 달라마시아의 시대 이후로 지상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여자인 이브가 남자와 함께 세상 관련사들에 대한 모든 영광과 책임을 나누어 가지게 된 이 사실은 매우 놀랄만한 혁신이었다. 이렇게 하여 이 세상에서의 넷째 날이 막을 내렸다.

74:3.6 (831.3) 다섯째 날은 임시 정부의 조직에 바빴고, 그것은 멜기세덱 접수자들이 유란시아를 떠나게 될 날까지 기능하는 관리-행정기구 이었다.

74:3.7 (831.4) 여섯째 날은 사람과 동물의 여러 가지 종류들에 대해 검열하는 것으로 보냈다. 에덴의 동쪽 벽을 따라가는 동안, 아담과 이브는 하루 종일 호위를 받으면서 행성의 동물 생활들을 구경하였고 그러한 다양한 종류의 생물체가 거주하는 하나의 세계가 처한 혼란된 상태로부터 질서를 유도해 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 지에 대하여 더 깊은 압득을 하게 되었다.

74:3.8 (831.5) 그 날 아담과 함께 이 여행에 동행하였던 사람들은, 아담에게 보여준 수천 종류의 동물들의 자연본성과 기능에 대해 아담 자신이 얼마나 정확하게 압득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모두들 크게 놀랐다. 그는 어느 동물을 쳐다보는 순간 그 자연본성과 습성을 지적하였다. 아담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 창조체들의 기원과 자연본성 그리고 기능을 묘사할 수 있는 이름들을 붙여줄 수 있었다. 이 검열 여행을 수행한 사람들은, 그들의 새 통치자가 모든 사타니아에서 가장 숙련된 해부학자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브 역시 같은 전문가였다. 아담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생물들의 무리를 설명함으로써 그의 연관 동료들은 놀라게 하였다.

74:3.9 (831.6) 그들이 이 세상에 머문 지 여섯째 날이 끝날 때, 아담과 이브는 처음으로 "에덴의 동쪽"에 있는 그들의 새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유란시아 여행의 처음 엿새 동안은 매우 바쁘게 지냈으며, 그들은 모든 활동으로부터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게 될 이 날을 큰 즐거움을 갖고 고대하였다.

74:3.10 (831.7) 그러나 상황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아담이 유란시아 동물의 삶에 대해 매우 지능적이고 철저하게 규명한 바로 전 날의 체험은, 그의 훌륭한 취임식 연설 그리고 그의 멋진 자태와 함께, 동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지성을 너무나 압도해 버렸으므로, 그들은 새로 도착한 예루셈의 아들과 딸을 통치자들로써 전심으로 받아들이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앞드려서 그들을 하느님들로서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 4 장. 첫 번째 격변

74:4.1 (832.1)

여섯째 날 밤, 아담과 이브가 잠을 자는 동안에, 에덴의 중앙에 위치한 아버지의 성전 부근에서 이상한 관련자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부드러운 달빛 아래에서 수백 명의 열광하고 흥분한 남자와 여자들이, 자기들의 영도자들이 열광적으로 탄원하는 소리를 여러 시간동안 경청하고 있었다. 그들은 호의를 품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새로운 통치자의 형제우애에서의 소박함과 민주적인 태도를 납득할 수 없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세상사를 맡아 볼 새롭게 구성된 임시 행정-관리자들은, 아담과 그의 반려자가 너무나 겸손하고 신중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신성(神性)이 육체를 가진 형상으로 지상에 내려온 것으로, 아담과 이브가 실체 안에서, 하느님이거나 아니면 존경받을 경배를 받아 마땅한 그러한 어떤 지위에 아주 가깝다고 결정하였다.

74:4.2 (832.2)

아담과 이브가 이 세상에 온지 엿새 동안에 보여준 놀라운 일들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는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였으며; 따라서 그들의 머리는 혼란스러웠고; 결국 그들은 그 고귀한 한 쌍을 그날 정오에 아버지의 성전에

모셔다 놓고 그들에게 경배의 절을 하고 복종의 서약을 할 것에 대한 제의에 한결같이 동의하였다. 동산의 거주자들은 그 모든 일에 실제로 진지하게 대하였다.

74:4.3 (832.3) 반은 항의하였다, 아마돈은 아담과 이브와 뒤에 남아 철야를 보내는, 명예로운 수호자 책임을 맡았기에 자리에 없었다. 한편 반의 항의는 일축되었다. 반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겸손하고, 너무나 티를 내지 않아, 그도 하느님 자신에 못지않다고 하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며, 아담의 도래를 위한 그러한 위대한 사건을 준비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을 들었다. 그리고 열광한 에덴-사람들이 찬미를 위하여 반을 붙잡아서 그를 데리고 언덕 위에 올라가려 하자, 반은 군중들 틈에서 벗어나서, 중도자(中途者)들에게 교통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 영도자를 황급히 아담에게 보냈다.

74:4.4 (832.4) 아담과 이브가 이 세상에 온지 일곱째 날이 밝아오고 있을 때, 그들은 선의(善意)를 갖기는 하였지만 잘못 인도된 이 필사자들의 제안한 것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그 때, 여객용 새들이 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신속히 날아오고 있었지만,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종도자들이 아담과 이브를 성전으로 옮겨갔다. 이것은 7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 벌어졌는데, 아담은 환영식을 개최했던 언덕 위로 올라가 신성한 아들관계에 대한 규칙들에 관하여 군중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경배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였다. 아담은 자신이 어떤 명예나 모든 존중을 받아들이겠지만, 경배만큼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74:4.5 (832.5) 그 날은 중대한 날이었으며, 정오가 되기 전, 세라핌천사 메신저들이 그 세계의 통치자 취임에 대한 예루셈의 허가서를 갖고 도착하였을 때, 아담과 이브는 군중들로부터 떠나면서, 아버지의 성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였다: “자, 이제 너희는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현존에 대해 물질적으로 상징하는 곳으로 가서, 우리 모두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분께 경배하고 절하라. 그리고 이 행위를 오직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다시는 경배하지 않겠다는 진실의 서약으로 삼아라.” 그들은 모두 아담이 지도한대로 하였다.

물질아들과 딸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옹드려 절하는 동안 단 둘이 언덕 위에 서 있었다.

74:4.6 (832.6) 그리고 이것이 안식일 전통의 기원이 되었다. 에덴에서는 7일째 되는 날은 언제나 정오에 성전에서의 집회에 열심히 모였고, 그 날을 자아-수양의 날로 삼는 것이 오랫동안 전통으로 전해졌다. 오전에는 신체적 수련으로 보냈고 정오에는 영적인 경배를 드렸으며 오후에는 마음을 수양하고 저녁에는 함께 어울려 즐겼다. 에덴에서 이것이 법으로 지켜진 적은 없었지만 아담의-관리-행정이 지상을 통치하는 동안에는 관습으로 지켜졌다.

제 5 장. 아담의 관리-행정

74:5.1 (833.1) 아담이 도착한 후 거의 7년 동안 멜기세덱 접수자들이 의무 수행을 위하여 남아있었지만, 때가 이르자 그들은 세상 관련사의 관리-행정을 아담에게 맡기고 예루셈으로 돌아갔다.

74:5.2 (833.2) 그 접수자들의 송별식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 저녁에는 개별 멜기세덱들이 아담과 이브에게 자신들의 분야에서 줄 수 있는 조언과 최고의 희망사항들을

전해주었다. 아담은 그의 충고자들에게 자기와 함께 지상에서 머물러 줄 것을 이미 여러 번 부탁하였지만, 그 부탁들은 항상 부인되었다. 이제 이 물질아들이 세상 관련자들의 수행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맡아야 할 때가 온 것이었다. 그래서 사타니아의 세라핌천사 운송자들은 한 밤중에 14명의 존재들을 데리고 예루셈을 향해 그 행성을 떠났고, 반과 아마돈의 전환도 12명의 멜기세덱들의 출발과 함께 동시적으로 발생했다.

74:5.3 (833.3) 유란시아는 한동안 모든 것이 무난하게 진행되었고, 그것은 아담이 결국에는 에덴의 문화를 점차적으로 증진시키려는 어떤 계획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멜기세덱들의 충고에 따라서, 그는 외부 세계들과 무역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생각으로 제조업 기술을 육성시키기 시작하였다. 에덴이 몰락했을 당시에는, 백 개가 넘는 원시적인 제조업 공장들이 거기에서 작동 중이었고, 인근에 있는 부족들과의 광범위한 무역관계가 수립되어 있었다.

74:5.4 (833.4) 아담과 이브는, 문명의 진화를 위해 그들의 전문적인 기여를 가능케 하기 위한 준비로, 세상을

개선하는 기법을 오랜 세월 동안 가르쳤으나; 이제 그들은 미개인, 야만인, 그리고 반쯤 개화된 사람들의 세계에 법과 질서를 세워야 하는 것과 같은 당면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구 인구들 중에서 정선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동산에 모인, 여기저기에 있는, 오직 몇 개의 집단들만이 아담의-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

74:5.5 (833.5) 아담은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해 영웅적이고 단호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는 매 번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아담은 이미 에덴을 하나의 체계로 통제할 수 있게 해 놓았고 이 모든 집단들을 에덴의 연방체제에 속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동산 밖의 세계로 나가서 이 생각을 이방 부족들에게도 적용시키려 하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 아담의 연관-동료들이 동산 외부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칼리가스티아와 달리가스티아의 직접적이고 잘 계획된 저항에 곧 부딪혔다. 몰락한 영주는, 세계의 통치자로서의 지위는 박탈되었지만, 아직 이 행성으로부터 제거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지상에 남아 있었으며, 인간 사회를 부흥시키려는 아담의 모든 계획에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저항할 능력이 있었다. 아담은 부족들에게

칼리가스티아를 대항하도록 경고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그의 적이 필사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무척 어려웠다.

74:5.6 (833.6) 심지어는 에덴족속들 중에서도 칼리가스티아의 방자한 개인적 해방에 대한 가르침에 마음이 기울어져서 혼동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아담에게 계속 문제를 야기 시키는 존재들이었다; 아담이 짜놓은 정연한 진보와 실질적인 개발을 위한 최상의 계획을 항상 뒤엎어버렸다. 마침내 그는 즉각적인 사회화를 위한 계획을 철회시킬 수밖에 없었다; 반이 행한 조직화 방법으로 되돌아가서, 에덴-사람들을 100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편성하였고 각 집단마다 지휘관을 두었으며 10명의 집단마다 보좌관을 두었다.

74:5.7 (834.1) 아담과 이브는 군주정치 대신하는 대의정치를 세우려고 왔지만, 그러나 지구 온 땅에서 그런 이름에 어울릴만한 정부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당분간 아담은 대의정부를 세우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에덴의 영토가 붕괴하기 전에, 그는 바깥쪽에 강력한 개별존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거의

100개에 이르는 무역 및 사회 중심들을 세우는 데 성공하였다. 이 중심들의 대부분은 반과 아마돈에 의해 이전에 조직된 적이 있었다.

74:5.8 (834.2) 한 부족으로부터 다른 부족에게 대사를 파견하는 일이 아담의 시대에 생겨났다. 이것은 정부 제도의 진화에 있어서 큰 발전이었다.

제 6 장. 아담과 이브의 가정생활

74:6.1 (834.3) 아담의-가족의 주거지는 5평방 마일을 약간 넘었다. 이 택지를 둘러싸고 있는 인접 구역은 30만 명 이상의 순수 혈통을 지닌 자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획된 건물들 중에서 오직 첫 번째 단계의 건물들만이 건축되어 있었다. 아담의-가족의 수효가 이러한 초기 계획에 도달하기 전에 에덴의 계획 전체가 파괴되었고 동산은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

74:6.2 (834.4) 아담아들은 유란시아에서 태어난 첫 번째 보라색 인종이었고 그 밑으로 누이동생이 태어났으며 아담과 이브의 둘째 아들 이브선이 태어났다. 멜기세덱들이 유란시아를 떠나기 전에 이브는 다섯 명—세 아들과 두 딸—의 자녀를 두었다. 두 딸은 쌍둥이였다. 이브는

불이행을 범하기 전까지 모두 63명의 자녀들을 낳았는데, 32명의 딸과 31명의 아들을 두었다. 아담과 이브가 동산을 떠날 때, 그들의 가족들은 4대를 이루었으며, 순수 혈통의 자손들 숫자는 1,676명에 달하였다. 그들은 동산을 떠난 뒤에도 42명의 자녀들을 더 낳았고, 그 외에 이 세상의 필사자 혈통과 결합하여 2명의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낫-사람 그리고 진화적 인종들에게 이어지는 아담의-가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74:6.3 (834.5) 아담의-자녀들은 생후 1년이 지나 엄마의 젖을 떼 후에도, 동물로부터 나온 우유를 먹지 않았다. 이브는 젖을 떼 후에 여러 종류의 견과류를 섞은 밀크나 여러 가지 과일 쥬스들을 먹었는데, 이 음식들의 에너지와 화학작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브는 아이들의 치아가 모두 나올 때까지 그 음식들을 적절히 배합해서 먹었다.

74:6.4 (834.6) 에덴에서 아담의-구역 바로 바깥에서는 불로 익혀먹기가 보편적으로 행해졌지만, 아담의 식구들은 불로 익혀먹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먹을 것—과일, 견과류와 곡류들—을 충분히 익은 것들로 준비하였다. 그들은 하루에 한 번, 정오 직후에 먹었다. 아담과 이브는

또한 생명나무의 사명활동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특정한 공간 방사물로부터 직접 “빛과 에너지”를 흡입했다.

74:6.5 (834.7) 아담과 이브의 육체는 미광(微光)을 발산하였지만, 그들은 항상 자기 연관-동료들의 관습에 따라서 반드시 옷을 입고 있었다. 낮 동안에는 거의 입지 않지만, 황혼 무렵에는 밤 외투를 입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을 나타낼 때 머리 뒤로 둥그렇게 둘러싼 후광(後光)을 표현하는 전통은, 그 기원이 아담과 이브 시대로 올라간다. 그들의 몸에서 발산되는 빛은 대부분 옷으로 가려졌기에, 방사되는 광채가 오직 그들의 머리 둘레에서만 볼 수 있었다. 아담아들의 후손들은 영적 발전에서 비상하다고 믿어지는 개별존재에 대한 그들의 개념을 항상 이렇게 묘사하였다.

74:6.6 (834.8) 아담과 이브는 둘 사이에 그리고 직계 후손들과 서로 약 50마일 정도의 거리 이상에서도 교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생각의 전달은 그들의 대뇌 구조물들에 아주 근접해 있는 섬세한 기공실(氣孔室)들로 인해서 작동되었다. 이 기능구조에 의해 그들은 생각의 진동을

주고 또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능력은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혼란스럽거나 분열되면 즉시 멈추어져 버렸다.

74:6.7 (835.1) 아담의-자녀들은 16살이 될 때까지는 형들이
동생들을 가르치는 자체 학교에 다녔다. 어린아이들은 매
30분마다 활동을 바꾸었고, 좀 나이가 든 아이들은 한
시간마다 그렇게 하였다. 전적인 재미를 위한 아담과
이브의 아이들의 열광적인 활동과 놀이는 유란시아에서는
확실히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지금-현재 인류들의 놀이와
유머는 많은 부분이 아담의-혈통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아담-사람들은 모두들 예리한 유머 감각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깊은 조예를 갖고 있었다.

74:6.8 (835.2) 약혼하는 평균 연령은 18세였는데, 그 때부터 이
젊은이들은 부부의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는 2년간의 교육 과정에 들어갔다. 20세가 되면
그들은 결혼할 수 있었고; 결혼 후에 그들은 생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 대신에 다른 특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74:6.9 (835.3) 후대의 나라들에서, 하느님들의 후손으로
여기면서 왕족들은 형제와 자매가 결혼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실천하였는데, 이 전통은 아담의-자손을 낳기—짝짓기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이러한 짝짓기는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었다. 동산에서 자라난 제 1대와 2대 자손들까지는, 그들의 결혼식을 아담과 이브가 항상 주재하였다.

제 7 장. 동산에서의 생활

74:7.1 (835.4) 아담의 자녀들은, 4년 동안 서쪽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에덴의 동쪽”에서 일하며 살았다. 그들은 예루셈 학교들의 방식에 따라 16세가 될 때까지 지적(知的)인 훈련을 받았다. 16세에서 20세까지는 동산의 반대쪽 끝에 있는 유란시아의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곳에서는 낮은 학년의 학생들에게 선생으로 봉사하기도 하였다.

74:7.2 (835.5) 동산의 서쪽에 있는 학교 체계의 전체적인 목적은 사회화(社會化)였다. 휴식시간의 오전 기간에는 원예업과 농업 실천 실습으로 보냈고, 오후 시간은 경쟁적인 운동 경기를 하였다. 저녁에는 사회적인 교제와 개인적 사교를 통한 수양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종교와 성교육(性教育)은 가정의 직분, 부모들의 임무로 간주되었다.

74:7.3 (835.6) 이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가르쳤다:

74:7.4 (835.7) 1. 건강과 몸을 돌보는 일.

74:7.5 (835.8) 2. 황금률(黃金律), 사회적 교제의 표준.

74:7.6 (835.9) 3. 집단적 권리와 공동체 임무에 대한 개별적 권리의 관계.

74:7.7 (835.10) 4. 이 세상의 여러 인종들에 관한 역사와 문화.

74:7.8 (835.11) 5. 세계 무역을 증진시키고 개선시키는 방법들.

74:7.9 (835.12) 6. 상충되는 임무들과 감정들의 조화-협동.

74:7.10 (835.13) 7. 오락, 유머, 그리고 육체적인 투쟁을 대신 할 수 있는 경쟁에 대한 수련.

74:7.11 (835.14) 사실상 동산의 모든 활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학교는 방문자들에게 항상 열려져 있었다. 무기를 갖지 않은 관찰자들이 에덴을 잠깐 방문하는 일은 자유롭게 허용되었다. 유란시아인 이 동산에 체재하기 위해서는 "입양되어야" 했다. 그는 아담의-증여가 갖는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들였으며 이 과업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시하였으며, 그러고 나서는 아담의

사회적 통치와 우주 아버지의 영적인 주권에 충성을 바칠 것을 맹세했다.

^{74:7.12 (836.1)} 동산의 법은 달라마시아의 옛 관례들에 기초를 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일곱 개의 제목들을 중심으로 선포되었다:

^{74:7.13 (836.2)} 1.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

^{74:7.14 (836.3)} 2. 동산의 사회적 규정들.

^{74:7.15 (836.4)} 3. 무역과 상업에 관한 관례들.

^{74:7.16 (836.5)} 4. 공정한 경기와 시합에 관한 법.

^{74:7.17 (836.6)} 5. 가정생활에 관한 법.

^{74:7.18 (836.7)} 6. 황금률에 관한 시민적 관례들.

^{74:7.19 (836.8)} 7. 최극 도덕적 규칙의 일곱 가지 계명들.

^{74:7.20 (836.9)} 에덴의 도덕법은 달라마시아의 7계명과 약간 달랐다. 그러나 아담-사람들은 이들 계명에 대한 많은 추가적인 이유들을 가르쳤다; 예를 들면, 살인 금지명령에 대해, 생각 조절자의 내주가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지

말아야 하는 추가적인 이유로 제시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다: “사람으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는 하느님의 형상대로 그가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74:7.21 (836.10) 에덴의 대중 경배 시간은 정오였고; 해 질 무렵은 가족 경배의 시간이었다. 아담은 사람들이 미리 짜인 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만류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기도문은 전적으로 개별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과, “혼의 열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쳤지만; 에덴-사람들은 기도문이나 달라마시아 시대로부터 전해온 형태들을 계속 사용하였다. 또한 아담은 종교 의식에서 피를 흘리는 제물 대신으로 땅에서 난 과실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지만, 동산이 몰락하기 전에는 거의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74:7.22 (836.11) 아담은 성의 동등성을 종족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였다. 이브가 남편과 나란히 함께 일하는 모습은 동산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아담은 여자가 남자와 똑같이 새로운 존재를 형성하려고 연합하는, 생명 요소들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쳤다. 그리하여 인류는 모든 생식력이 “아버지의 허리” 속에 들어 있다고 믿었었다. 그들은 어머니란 단지 태아를 양육하고 태어난 뒤에는 기르는 역할만을 할뿐이라고 생각하였다.

74:7.23 (836.12) 아담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쳤지만, 비교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사실상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능이 비교적 높은 지상의 인류들은 자신들이 우월한 보라색 인종의 자손들과의 상호결혼이 허락될 그 날들을 간절히 고대하였다. 만약 인류 향상의 이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유란시아는 얼마나 다른 세계가 되었겠는가! 그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던 상황 아래에서도, 진화하는 민족들이 우연히 간직하게 된, 다른 곳으로부터 도래된 이 인종의 소량의 피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74:7.24 (836.13) 그리고 아담은 자신이 머물렀던 세상의 복지와 진보를 위해 그렇게 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잡다하고 혼혈된 사람들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임무였다.

제 8 장. 창조 설화

74:8.1 (836.14) 6일 만에 유란시아가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담과 이브가 동산을 시찰하는데 6일이 걸렸던 사건에서 기인된 것이다. 이 상황은, 달라마시아인 들에게서 기원되어 소개되었던 일주일이라는 기간에 대하여, 거의 신성시되는 권위를 덧붙였다. 아담이 동산을 검열하고 조직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6일을 소비한 것은, 미리 의도된 것이 아니었고; 하루하루 일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제 7일을 경배의 날로 선택한 것은, 여기에 서술한 상황에 따라 일어난, 전적으로 우연한 사실이었다.

74:8.2 (837.1)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전설은 후대의 생각이었으며, 사실 그것은 그때로부터 3만년 이상이 흐른 뒤에 생겨난 것이었다. 그 이야기의 중의 한 부분인, 해와 달이 갑작스럽게 생겼다는 일화는, 아마도 해와 달을 오랫동안 가리고 있던 미세한 물질의 밀도 있는 구름으로부터 세계가 갑작스럽게 드러났다는 한때의 전통에서 기원된 것처럼 보인다.

74:8.3 (837.2) 이브를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담의-도착과, 45만년보다 더 이전에 행성영주의 유형 참모진의 도래 시에 생명 물질의 교환을 위해 천상(天上)의 수술을 받은 것과 뒤섞여서 혼동되어진 요약이다.

74:8.4 (837.3)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담과 이브가 유란시아에 도래할 때 그들을 위해 창조된 물리적 형태를 가졌다는 전통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사람이 진흙에서부터 만들어졌다는 믿음은 동반구(東半球)에서는 거의 보편적인 것이었다; 이 전통은 필리핀군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종족들이 진보적인 창조—진화—를 믿는 초기의 신앙 대신에, 사람이 진흙에서 만들어졌다는 특별 창조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를 받아들이었다.

74:8.5 (837.4) 달라마시아와 에덴의 영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인류는 인간 종족이 점진적으로 상승한다는 믿음으로 기울었다. 진화의 사실성은 현대의 발견이 아니다; 옛 사람들은 인간의 진보가 천천히 그리고

진화적이라는 성격을 납득하고 있었다. 초기 그리스인들은 메소포타미아에 근접하여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명백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종족들이 그들의 진화개념에서 딱할 정도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원시 부족들은 자신들이 다양한 동물의 후손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가르쳤다. 원시 민족들은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지는 동물들을 자신들의 “토템”으로 선택하는 하나의 실천 관행을 만들었다. 북아메리카 인디언 부족들은 자신들이 비이버 또는 늑대로부터 나왔다고 믿었다. 또 어떤 아프리카 부족은 자신들이 하이에나로부터, 말레이 부족은 여우원숭이로부터, 그리고 뉴기니 집단은 앵무새로부터 내려왔다고 가르쳤다.

74:8.6 (837.5)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아담-사람 문명의 잔재와 곧바로 접촉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를 더욱 커지게 하였고 미화시켰다; 그들은 사람은 하느님들로부터 직접 내려왔었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진흙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교리와도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종족의 귀족스러운 기원을 고수하였다.

74:8.7 (837.6)

구약 성경의 창조 설화는 모세 시대보다 훨씬 뒤에 나온 것이다; 그는 결코 그런 왜곡된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단순하고 함축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창조에 관한 간단하고 함축된 이야기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이라고 불렀던 창조자이신 우주 아버지를 경배하기 위한 호소를 그로써 증강되기를 바랐던 것이었다.

74:8.8 (837.7)

모세는 그의 초기 가르침에서 매우 현명하게도 아담의-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모세는 히브리인들의 최극 스승이었기 때문에, 아담에 관한 이야기가 창조 신화와 밀접하게 연결되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 초기의 전통들에서는 아담의-이전 시대 문명들이 인정되었다는 사실이 다음과 같은 점에 의해 명확하게 보이는데, 후세의 편집자들이 아담 시대 이전의 인간 관련사들에 대한 모든 언급들을 말소시켜 버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카인이 “놋의 땅”으로 이주해서 자신의 아내를 취했다는 이야기는 무심코 넘겨 버리고 삭제하지 않았던 것이다.

74:8.9 (838.1)

히브리인들은 팔레스타인에 도착한 후 오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웃에 있는 필리스틴 사람들로부터 알파벳의 사용법을 배웠는데, 그 사람들은 더 높은 문명권인 크레테에서 정치적으로 피신한 사람들이었다. 히브리인들은 기원전 900년이 될 때까지 거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며, 그러한 후대까지도 문자를 갖지 못하였고, 약간의 서로 다른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 수정된 메소포타미아 설화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74:8.10 (838.2)

유대인의 전통은 모세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추적하여 아담에게까지 연결시키기 위해 애썼기 때문에, 모세에 관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유대인들은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가정 하였다. 야훼는 창조자였고, 아담은 첫 번째 사람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야훼는 아담을 만들기 직전에 세상을 창조했어야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담의 6일에 대한 전통이 그 이야기에 엮여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모세가 땅에서 머문 지 거의 천년이 지난 후에,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했다는 전통이

기록되어졌고 나중에는 그것이 모세가 쓴 것으로 그 공적이 돌아갔다.

74:8.11 (838.3) 유대인 사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이미 사물의 시작이라는 자신들의 서술에 관한 기록을 이미 완성했었다. 그들은 곧 이 낭송이 모세가 쓴 창조 이야기로서, 최근에 발견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원전 500년 무렵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글들이 나중에 신성한 계시로 여겨지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후세 민족들이 그것들을 신화적인 서술 정도로 보리라고 여겼다.

74:8.12 (838.4) 모세의 가르침들이라고 널리 알려진 이 위조 문서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리스인 왕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는 70명의 학자들로 위원회를 만들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자신의 새 도서관을 위하여 그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히브리 종교와 그리스도교의 "성스러운 경전들"이라는 수집품들의 일부가 되는 문서들 속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이 신학 체계들과의 정체화구현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개념들은 오랫동안

많은 서방(西方) 민족들의 철학에 심오하게 영향을 미쳤다.

74:8.13 (838.5) 그리스도교 교사들은 인간 종족을 명령으로 창조하였다는 믿음을 영속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 유토피아의 축복을 누린 한 때의 황금기에 대한 가설이 형성되게 이끌었고, 사람 또는 초(超)인간의 타락으로 유토피아가 아닌 상태의 사회를 맞게 되었다는 이론이 형성되도록 직접 이끌었다. 사람의 삶과 우주에서의 위치에 대한 이러한 관점들은 기껏해야 낙심만 주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한 때 행성의 관리행정자들이 저지른 실수들 때문에 인간 종족에게 징벌을 내리면서 격분을 쏟아냈었던 신(神)을 암시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하여 신(神)에 대해 진보보다는 오히려 후퇴하는 믿음을 바탕에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74:8.14 (838.6) "황금기"는 하나의 신화이지만, 에덴은 분명한 사실이었으며, 동산의 문명은 실재로 전복되었다. 이브의 성급함과 아담의 판단 실수를 통하여 두루, 그들은 멋대로 추측하여 정해진 길로부터 벗어났고, 결국은 급속한 자신들의 재앙은 물론 유란시아 전체의 발전적 진보에

파괴적인 지연을 초래하였다, 그 당시에 아담과 이브는 동산에서 117년 동안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었다.

74:8.15 (838.7) ["동산의 음성" 세라핌천사인, 솔로니아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75 편 아담과 이브의 불이행

75:0.1 (839.1) 유란시아에서 100년이 넘도록 수고한 후에도, 동산 바깥의 세상에 진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아담은 알 수 있었다; 그 세계는 전체적으로 많이 개선되어 가지 않는 듯이 보였다. 더 나은 종족으로의 실현은 머나먼 길처럼 보였으며,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본래의 계획에 없는 어떤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그것은 아담의 마음을 종종 스쳐갔고, 그는 이브에게 자신의 심정을 여러 번 고백하였다.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충성스러운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존재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고, 자신들이 처한 세상의 곤혹스런 상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제 1 장. 유란시아 문제

75:1.1 (839.2) 시험적이고 반역으로 피폐되어 있었던 고립된 유란시아에서 아담의-임무는 결코 쉬운 과업이 아니었다.

그리고 물질아들과 딸은 자기들이 배정된 그 행성의 어려움과 복잡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기 있게 산적한 여러 문제들을 풀기 위한 업무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이라는 종족들로부터 결함들과 변질된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중요한 작업에 막상 뛰어들었을 때, 그들은 상당히 당황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러한 진퇴양난의 지경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가 없었으며, 예루셈이나 에덴시아에 있는 자신들의 상급자들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고립되어 있었고 매일같이 복잡하게 얽힌 새로운 문제들과 부딪혔는데, 어떤 문제들은 해결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75:1.2 (839.3)} 정상적인 조건 속에서는, 행성 아담과 이브가 조화-협동하여 인종들의 피를 섞는 것이 첫째 업무였을 것이다. 그러나 유란시아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실현될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냐하면 종족들이 생물학적으로는 혼혈이 가능했지만, 그들의 퇴행과 결함투성으로 변질된 상태는 결코 정화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75:1.3 (839.4) 아담과 이브는 사람의 형제신분을 선포하기에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구체, 비참한 영적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고, 앞서있었던 관리-행정의 사명 불이행으로 인하여 더욱 심하게 엉망진창이 된 혼란으로 저주받은 세계에 자신들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음과 도덕은 낮은 차원에 있었고, 그래서 종교적 합일을 이룩하는 과업을 시작하는 대신에, 그들은 거주자들을 종교적 믿음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 전환하는 일을 모두 새로 시작해야만 했다. 채택하기에 알맞은 한 가지 언어를 발견하기는커녕, 그들은 수 백 가지의 지방 사투리를 지닌 수많은 전-세계적 혼란을 마주보게 되었다. 행성 봉사의 그 어떤 아담도 이보다 더 어려운 세계에 발을 디딘 적이 없었다; 장애물은 극복할 수 없는 듯이 보였고, 문제들은 창조체의 해결이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75:1.4 (839.5) 그들은 고립되어 있었고, 멜기세덱 접수자들마저 일찍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지치게 만드는 엄청난 고독감이 더욱 심하게 일어났다. 오직 간접적인 방법으로, 천사들의 계층을 이용해서 다른 행성의 어떤 존재들과 교류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용기는 서서히 약해져

갔고, 그들의 영은 시들어졌고 때때로는 신앙마저 거의
넘어질 정도였다.

75:1.5 (840.1) 이상(以上)과 같은 것이, 자신들 앞에 부닥친
업무들을 고려할 때마다, 두 고상한 혼들이 대경실색한
진정한 모습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성 과제의
해결에 관계된 엄청난 업무들을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75:1.6 (840.2) 어쩌면 네바돈의 어떤 물질 아들들도,
유란시아에서 아담과 이브가 부닥친 곤경과 같은
어려움과 절망적인 업무에 직면한 적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예지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임했었더라면,
그들은 언젠가는 성공을 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둘
모두, 특히 이브는 참을성이 좀 부족하였는데, 그들은 오래
오래 건디는 시험에 안주하기를 싫어하였다. 그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보고 싶어 하였고, 그렇게 행동하였지만,
그 결과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가장 큰 재앙을
초래하는 일을 겪었던 것이다.

제 2 장. 칼리가스티아의 음모

75:2.1 (840.3) 칼리가스티아는 동산을 자주 방문하였고 아담과 이브와 여러 차례 회합을 가졌지만, 아담과 이브는 그가 제안하는 타협안과 지름길처럼 보이는 모험들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한 모든 간사한 제안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면역성을 길러 줄 수 있는 반역의 결과들이 그들 앞에는 너무 많이 널려있었다. 아담의 어린 자녀들조차도 달리가스티아의 제안에 조금도 끌리지 않았다. 물론 칼리가스티아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도 어떤 개별존재에게든지 그의 의지에 역행하는 영향을 줄 수 없었고, 아담의 자녀들이 그릇된 일을 하도록 설득할 힘은 더욱 없었다.

75:2.2 (840.4) 칼리가스티아가 여전히 유란시아의 유명무실한 행성영주, 잘못 인도되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우주의 높은 아들이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그는 유란시아에 그리스도 미가엘의 때가 오기까지 최종적으로 폐위 당하지는 않았다.

75:2.3 (840.5) 이 타락한 영주는 집요하였고 단호하였다. 그는 곧 아담에 대한 공작(工作)을 포기하고 이브에 대하여 교활한 측면 공격을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악인(惡人)은, 한 때

육체를 가졌던 자기 참모진의 후손들인, 낯-사람들 종족의
상류 계층 중에서 적합한 사람들을 고용하여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 계획은 보라색 인종의 어머니를 적절한
방법으로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75:2.4 (840.6) 아담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혹은 그들의 행성
신뢰도를 위태롭게 하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은, 이브의
뜻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었다. 훨씬 광범위한 효과들을
위하여 긴 안목으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들을 여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을 알았기 때문에,
멜기세덱들은 떠나기 전에 특별히 이브에게 주의를
주었는데, 그것들은 행성의 고립된 상황으로 인한 특별한
위험에 관한 경고였으며 특히 그녀의 반려자 곁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라는 것, 다시 말해서 상호적인 업무를
진행시키기 위해 어떠한 개인적이나 혼자 비밀을 지키는
일을 시도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브는 백 년 이상 아주
면밀하게 이 지시들을 지켜나갔으며, 세라파타샤라는
이름의 어느 낯-사람 영도자와의 방문을 점점 더
사적(私的)이고 은밀하게 즐기게 되기 전까지는 어떤
위험스러운 일도 그녀에게 발생되지 않았다.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서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발전되어 갔었기 때문에 그녀는 의식하지 못하였던 것이었다.

75:2.5 (840.7) 동산의 거주자들은 에덴의 초기부터 낯-사람들과 접촉을 해왔다. 칼리가스티아 참모들의 불이행 가담 구성원들의 혼혈 후손인 그들로부터 그들은 많은 가치 있는 도움과 협조를 받아들였지만, 그들을 통해서 에덴의 체제는 이제 완벽한 작동불능과 최종 전복을 맞이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다.

제 3 장. 이브에 대한 유혹

75:3.1 (841.1) 세라파타샤가 그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 낯-사람 부족들의 서쪽 지역인 시리아 동맹국의 영도자관계가 되었을 때, 아담은 이 세상에서의 첫 번째 100년을 막 완결하고 있었다. 세라파타샤는 갈색 피부의 남자였는데, 오랜 옛날 청색 인종의 여자 족장들 중의 하나와 결혼한, 한 때 달라마시아의 건강위원회 의장을 지냈던 사람의 영리한 후손이었다. 시대를 거쳐 오면서 이 가문이 권력을 잡았고 서쪽에 있는 낯-사람 부족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75:3.2 (841.2) 세라파타샤는 동산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고 아담이 내세운 대의명분의 정의로움에 깊이 감명 받았다. 그는 시리아에 있는 낯-사람들의 영도자관계가 된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의 일에 제휴할 뜻을 표명하였다. 그의 백성들 중 대다수가 이 계획에 참여하였고, 아담은 모든 이웃 종족들 중에서 가장 힘 있고 지적인 종족이 세계의 개선을 위한 계획에 헌신적인 지원을 맹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것은 확실히 기운이 나게 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 대단한 사건 후에 곧 세라파타샤와 그의 새 직원들은 아담과 이브의 집으로 초대받았다.

75:3.3 (841.3) 세라파타샤는 아담의 부관들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는 전적으로 정직하였고 자신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철저히 성실하였지만; 그는 나중에까지도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교활한 칼리가스티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였다.

75:3.4 (841.4) 이윽고 세라파타샤는 부족 간의 관계들에 관한 에덴의 참모 회의의 의장이 되었고, 외부 부족들을

합병시키는 일에 있어서 동산의 노선을 따라 좀 더
정력적인 추진을 위해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데
기여하였다.

75:3.5 (841.5) 그는 아담과 이브와 함께—특히 이브와—많은
의논을 하였으며, 그들의 방법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많은
계획들을 제시했다. 하루는 그가 이브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세라파타샤에게 문득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보라색 인종의
숫자가 크게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 동안이라도
매우 궁핍하게 기다리는 부족들을 즉시 진보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 동시에 행해질 수 있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세라파타샤는, 만약 가장 진보적이고
협력적인 부족인 낫-사람들이 보라색 인종과의
혼혈로부터 태어난 영도자를 가질 수 있다면, 이들
부족들과 동산의 정부가 훨씬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묶어주는 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이 아이가 동산에서 자라고
교육받아서 자신의 아버지 부족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진지하고도 사심 없이 하게 되었다.

75:3.6 (841.6)

세라파타샤가 전적으로 정직하였고 그가 제안하였던 모든 것에 있어서 전적으로 진지하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이 칼리가스티아와 달리가스티아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는 의심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세라파타샤는 유란시아의 혼잡스런 사람들을 전(全)세계적으로 진일보시키려는 시도를 하기 전에 먼저 보라색 인종을 견실하게 확보하려는 계획에 전적으로 충성을 바쳐왔다. 그러나 이 계획은 더할 나위 없이 이루는 데에 수백 년의 세월이 요구되었고, 그는 참을성이 부족하여 즉각적인 결과들을—자신의 생전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보기를 원하였다. 그는 그 세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의 성과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담이 자주 용기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이브에게 확인시켰다.

75:3.7 (841.7)

5년 이상이나 이 계획들이 비밀스럽게 무르익어 왔다. 마침내 그들은, 인근의 우호적인 낯-사람들의 거류민단에서 가장 현명하고 활동적인 영도자인 카노와 이브가 비밀 회합을 갖는데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카노는 아담의-통치체제에 매우 동정적인 사람이었다; 사실 그는

동산과 우호 관계에 있던 인근의 낯-사람들의 영적(靈的) 영도자였던 것이다.

75:3.8 (842.1) 어느 가을 날 저녁 황혼 무렵의 몇 시간 동안에, 아담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숙명적인 만남이 발생하였다. 이브는 아름답고 정열적인 카노를 그 전에는 본 적이 없었다.—그는 그의 먼 선조가 행성영주의 신하였고, 우월한 신체와 뛰어난 지능을 지닌 생존자의 훌륭한 표본 이었다. 그리고 카노 역시 세라파타샤가 제시한 계획의 정의로움을 철저하게 믿었다. (동산 밖에서는 복수(複數)의 결합이 통상적인 실천 관행이었다.)

75:3.9 (842.2) 감언(甘言)과 열정 그리고 훌륭한 개인적 설득에 자극을 받은 이브는 여러 번 논의된 계획에 착수할 것과, 더 크고 원대한 신성한 계획 위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녀 자신의 작은 계획을 덧붙이기로 그때 그 자리에서 동의하였다. 그녀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미처 깨닫기 전에, 운명의 발걸음은 시작되었다. 그 일은 이루어졌다.

제 4 장. 불이행에 대한 실제적 인식

75:4.1 (842.3) 그 행성에 있는 천상의 생명이 동요되었다. 아담은 뭔가가 그릇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이브를 동산 한쪽 편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때 아담은 세상의 개선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동시에 두 가지 방향을 병행하는, 신성한 계획을 실행하면서, 동시에 부수적으로 세라파타샤의 계획을 추진한다는, 그들이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계획의 전말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75:4.2 (842.4) 물질아들과 딸이 달빛 어린 동산에서 그렇게 교제하고 있을 때, "동산의 음성"이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였다. 그리고 그 음성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고, 나는 에덴의 남녀 한 쌍에게 그들이 동산의 서약을 어겼다는 사실과; 그들이 멜기세덱들의 지시사항들을 어겼다는 사실; 그리고 우주의 주권을 신뢰하겠다고 한 그들의 맹세를 실행하는데 불이행하였다는 사항을 발표하였다.

75:4.3 (842.5) 이브는 선(善)과 악(惡)의 실천에 참가하기로 이미 동의하였던 것이었다. 선이란 신성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고; 죄란 신성한 의지를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악이란, 그 결과로 우주의 부조화와 행성의 혼란을

초래되는, 계획들의 잘못된 적응과 기법들의 잘못된 조절이다.

75:4.4 (842.6) 동산의 그 한 쌍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때마다, 그들은 보호관리자 천사장으로부터 선과 악을 결합시키는 칼리가스티아의 제의에 따르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훈계를 받았다: “너희가 선과 악을 병합하는 날, 너희는 반드시 영역의 필사자가 될 것이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75:4.5 (842.7) 이브는 자주 반복되었던 이 경고를 비밀리에 행해진 치명적인 만남의 날에 카노에게 말했었지만, 카노는 그러한 경고의 중요성이나 의의(意義)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남자와 여자가 선한 동기와 진실한 의도로서 만나는 것은 악이 될 수 없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으며; 그녀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의 자손들 속에서 새롭게 살게 될 것이며, 그 자손들은 축복 속에서 성장하여 세상을 평정시킬 것이라고 말하였다.

75:4.6 (842.8) 비록 신성한 계획을 변경시킨 이러한 계획이 전적으로 진지하게 또한 세상의 복지를 위한 가장 고상한

동기들만으로 실행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릇된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기에 악을 조성시켰는데, 정당한 결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올바른 방법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75:4.7 (843.1) 이브는 카노가 눈으로 보기에 즐거운 자임을 발견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유혹한 자가 “인간 관련사에서의 새롭고도 증대된 지식, 그리고 아담의-자연본성에 대한 이해에서의 보충이 됨으로서, 그에 따라 인간 자연본성을 신속하게 납득”의 방법을 약속한 것, 그 모든 것을 실현했다.

75:4.8 (843.2) 이런 슬픈 상황 속에서 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날 밤 동산에서 보라색 인종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 때 어머니 이브가 불이행을 저지르게 될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자세히 듣게 되었고, 그런 후 그들 둘 모두에게 당면한 상황에 대한 충고와 조언을 해 주었다. 그들은 이 충고들 중에서 어떤 것은 지켰고 어떤 것은 무시하였다. 너희가 읽는 기록들에서는 이 만남이 “주 하느님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부르시며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라고 적혀있다.

그것이 자연적이건 영적이건 관계없이, 유별나고 비상한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개인적 개입으로 직접 돌리는 것이, 후대 사람들의 실천 관행이었다.

제 5 장. 불이행의 반향

75:5.1 (843.3) 이브가 느낀 환멸감은 정말 애처로운 것이었다. 아담은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비탄 속에서, 실수를 저지른 자신의 반려자에게 오직 연민과 동정을 줄 수밖에 없었다.

75:5.2 (843.4) 이브가 실수를 저지른 다음 날, 아담은 실패가 실현되었다는 좌절감 속에서 동산의 서쪽 학교 책임자로 있는 낯-사람의 현명한 여자인 라오타를 찾아갔으며, 그는 계획적으로 이브와 똑같은 과오를 범하였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 아담은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었다; 이브의 운명을 분담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그는 초인간적 애정으로 자신의 반려자를 사랑하였으며, 그녀 없이 고독하게 유란시아를 지켜야만 될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그가 도저히 견디어 낼 수 없는 것이었다.

75:5.3 (843.5) 이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동산의 거주자들이 알았을 때, 그들은 화가 나서 자제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인근에 있는 낯-사람 정착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였다. 그들은 에덴의 문들을 통해 밖으로 나가서, 미처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을 습격하였고, 그들을 철저히 섬멸하였다—남자와 여자는 물론 아이 하나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아직 태어나지 않은 카인의 아버지인 카노 역시 죽음을 당하였다.

75:5.4 (843.6)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실현으로 나타나자, 세라파타샤는 죄책감에 사로 잡혔고 경악과 공포로 자신을 가누지 못하였다. 다음날 그도 큰 강에 몸을 던져 죽음을 택하였다.

75:5.5 (843.7) 아담이 30일 동안 홀로 방랑하는 동안, 아담의 자녀들은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애썼다. 그 기간이 끝날 즈음에 저절로 내려진 결정으로, 아담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미래에 대한 행동 노선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75:5.6 (843.8) 잘못-인도된 부모들이 저지른 어리석음의 결과는 그들의 죄 없는 자식들에게까지도 종종 영향을 미치게 한다. 아담과 이브의 정직하고 고상한 아들과 딸들은 너무도 갑작스럽고 무자비하게 덮친 설명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슬픔과 비극에 이미 짓눌려 있었다.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자녀들은 그 비극의 날들 동안의 슬픔에서 회복되지 못하였는데, 특히 비탄에 잠긴 어머니가 남편의 행방이나 운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아버지가 집을 비운 30일 동안에 그들이 체험하였던 공포에서 헤어나기 어려웠다.

75:5.7 (843.9) 그 30일 동안은 이브에게는 슬픔과 고통의 긴 세월이었다. 이 고상한 혼은 정신적 고통과 영적 슬픔의 후유증에서 결코 충분하게 회복하지 못하였다. 후일 그들이 겪게 되는 궁핍과 물질적 고난은 이브의 기억에 새겨진 그 끔직한 나날들이나 외롭고 견딜 수 없이 불안했던 밤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세라파타샤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는 알게 되었었으나, 그녀의 짝이 슬픔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파괴한 것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아니면 그녀의 실족에 대한 징벌로 세상으로부터 제거되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그리고 아담이 돌아오자, 이브는 기쁨과 고마움의 만족을 체험했고, 이것은 그 이후에 그들이 고된 봉사의 길고도 어려운 일생 동반자관계에 의해서도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75:5.8 (844.1) 시간이 지나갔지만, 아담은 이브의 불이행 이후에 70일이 지날 때까지, 자신들의 위반의 본성이 어느 정도의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였는데, 그 때 멜기세덱 접수자들이 유란시아로 되돌아와서 세상 관련사에 대한 주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그 때에서야 그는 자기들이 이미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75:5.9 (844.2) 그러나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졌는데: 에덴 근처에 있는 낯-사람 정착민들의 절멸에 대한 소식들이 북쪽에 있는 세라파타샤의 고향 마을까지 전해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으며, 마침내 그들은 큰 무리를 지어서 동산으로 진군해 들어왔다. 이것이 바로 아담-사람들과 낯-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길고도 쓰라린 전쟁의 시작이었는데; 아담과 그의 무리들이 유프라테스 골짜기에 세운 두 번째 동산으로 이주해 간 뒤로도 이 적대감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리고 그의 자손과 그녀의 자손 사이의" 적대감이 강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제 6 장. 아담과 이브가 동산을 떠남

75:6.1 (844.3) 아담은 낯-사람들이 진군해 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멜기세덱들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애썼지만, 그들은 그에게 조언하기를 거절하였고, 스스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면, 어떤 방향의 결정이든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우정 어린 협조를 할 것을 약속하였다. 멜기세덱들에게는 아담과 이브의 개인적인 계획에 간섭하는 것이 이미 금지되어 있었다.

75:6.2 (844.4) 아담은 자기와 이브가 이미 실패하였다는 것을 알았는데; 멜기세덱 접수자들의 현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되었지만, 개인적인 지위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따르기로 맹세한 1,200명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과 밤새워 회의를 하였으며, 이 순례자들은 다음 날 정오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서 에덴을 떠났다. 아담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았고, 낯-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첫 번째 동산을 순순히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75:6.3 (844.5) 에덴의 카라반 여행자들은 동산을 출발한 지 3일 만에 예루셈으로부터 세라핌천사 운송자들의 도착으로 인하여 길을 멈추게 되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 운송자들이 서 있는 동안, 선택할 나이(20세)가 된 자녀들에게는 자신들의 부모와 함께 유란시아에 남아 있든지 아니면 놀라시아텍의 지고자들의 보호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들 중에서 3분의 2는 에덴시아로 가는 것을 선택하였고, 약 3분의 1은 자기들의 부모들과 함께 머물기로 결정하였다. 20세가 되지 않은 자녀들은 모두 에덴시아로 옮겨졌다. 이 물질아들과 딸이 그 자녀들과의 슬픈 이별의 장면을 보면서, 규칙을 어긴 자의 길이 고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담과 이브의 이 자손들은 현재 에덴시아에 있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75:6.4 (844.6) 여행할 준비를 하는 그들은 매우 슬픈 카라반 여행 대열이었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토록 고귀한 희망을 품고 한 세계에 와서 성대하게 영접을 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불명예스럽게 에덴을 떠나야 했으며, 게다가 새로운 거주지를 찾기도 전에 그들은 자식들의 4분의 3 이상을 잃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니 말이다!

제 7 장. 아담과 이브의 강등

75:7.1 (845.1) 에덴의 카라반들이 갈 길을 멈추는 동안,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과오의 본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자신들의 운명에 관한 충고도 들었다. 가브리엘이 판결을 선언하기 위해 나타났다. 그리고 그 판결은 이러하였다: 유란시아의 행성 아담과 이브는 불이행을 범하였으며 자신들이 거주하는 세계의 통치자로서 신탁통치의 계약을 위배하였음을 선고한다.

75:7.2 (845.2) 죄책감으로 침울해 있는 동안, 아담과 이브는 “우주 정부를 모욕한 죄”에 참여하였다는 모든 혐의로부터는 방면된다는 구원자별 심판관들의 판결문을 듣고 기운을 크게 되찾았다. 그들은 반역죄에 해당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75:7.3 (845.3) 에덴의 부부는 그들이 자신들을 영역의 필사자의 지위로 하락시켰다는 것; 이후부터는 그들 자신이, 자신들의 미래를 세상 종족들의 미래를 보살피면서, 유란시아의 남자와 여자로서 수행해야만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75:7.4 (845.4) 아담과 이브가 예루셈을 떠나기 오래 전에, 그들을 가르친 강사들은 어떤 것이든, 신성한 계획으로부터 중대한 이탈이 있을 경우에 생기는 결과를 그들에게 충분히 설명했었다. 나도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반복해서 경고했었는데, 그들이 유란시아에 오기 전과 오고 난 이후로도 나는 계속해서, 행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불이행을 저지르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결과 또는 징벌로써 그들이 필사 육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물질아들들의 불멸의 지위에 대한 이해는 아담과 이브의 불이행에 대한 결과를 분명하게 납득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75:7.5 (845.5) 1. 예루셈에 있는 그들의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아담과 이브는 영의 마음-중력 순환회로와 지적인 교류를 통해 불멸의 지위를 유지한다. 이러한 생명 유지가 정신적 분리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면, 어떤 창조체라 할지라도, 영적 차원의 고하에 관계없이 불멸의 지위를 잃게 된다. 육체적인 괴멸 과정이 뒤따라오는 필사자 지위는, 아담과 이브의 지적(知的)인 불이행에서 연유한,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75:7.6 (845.6)

2. 유란시아의 물질아들과 딸, 이 세계의 필사자 육신의 동일한 모습으로 마찬가지로 개인성구현화된 존재는, 이원적(二元的) 순환계의 유지를 위해 두 가지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신체적 본성들로부터 나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의 과실에 저장되어 있는 초(超)에너지로부터 나오는 것이었다. 보호관리자 천사장은 이미 아담과 이브에게, 신뢰에 대한 불이행은 결국 지위의 퇴보를 가져오리라는 사실과, 그들의 불이행에 뒤따라서 에너지의 원천에의 접근이 금지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항상 환기 시켜 왔었다.

75:7.7

(845.7)

칼리가스티아는 아담과 이브를 함정에 빠뜨리는데 성공하였지만, 우주 정부에 대항하는 반역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려던 그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행했던 것은 사실 악(惡)이었지만, 진리를 모독하는 죄는 전혀 저지르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우주 아버지와 그의 창조자 아들의 의로운 다스림에 대항하는 반역에 고의적으로 동조하지도 않았다.

제 8 장. 이른바 사람의 타락

75:8.1 (845.8) 아담과 이브는 물질 아들관계라는 높은 지위에서 필사 사람이라는 낮은 지위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타락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아담의-불이행의 즉각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인간 종족은 계속 향상되어오고 있다. 유란시아에 보라색 종족을 번성케 하려는 신성한 계획은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필사자 종족들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유란시아에 미친 한정된 기여 덕분에 여전히 큰 유익을 얻고 있다.

75:8.2 (846.1) “사람의 타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종족의 역사는 점진적인 진화들 중의 하나이며, 아담의-증여는 세계 민족들을 그 이전의 생물학적 조건으로부터 크게 개량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유란시아의 좀 더 우월한 혈통들은 지금 가장 많게는 네 가지 분리된 근원으로부터 유래된 유전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곧 안돈-사람, 산각, 낫-사람 그리고 아담의-요소들이다.

75:8.3 (846.2) 아담이 인간 종족을 저주받게 한 원인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그가 신성한 계획을 수행하는데 실패하였고 신(神)과의 계약을 위반하였고, 또한 그와 그의 반려자가 창조체의 지위로 가장 명백하게

강등되었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유란시아에서 문명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인간 종족에게 기여한 그들의 공헌은 지대한 것이다.

75:8.4 (846.3) 너희의 세계에서 아담의-임무가 이론 결과를 공의(公義)로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성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담이 그의 아름다운 반려자와 함께 예루셈에서 이 어둡고 혼돈스러운 행성으로 이동되었을 때, 그는 거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멜기세덱들과 그들의 협조자들의 조언에 의해 인도를 받고 있었고, 만약 그들이 조금만 더 참을성을 가졌었다라면 결국에는 성공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브는, 개인적인 해방과 행동에서의 행성적 자유를 주창하는 교활한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아들관계의 물질적 계층의 생명 원형질을 가지고 실험을 하도록 유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녀는 행성영주의 참모진에게 한 때 부속되었던 재(再)생산된 존재들의 것과 그 전에 이미 혼합되었던, 기원적 생명운반자들이 설계하여 그 당시에 병합되었던 것과 이 생명 위탁물이 너무 조급하게 섞이도록 허락하였다.

75:8.5 (846.4) 이미 정립되어 있는 그리고 신성한 계획을 너희가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지름길로, 개인적인 발명으로, 또는 다른 방편을 사용하여, 완전의, 완전^에에 이르는 그리고 영원한 완전을 향한 길에서 교묘하게 돌아 가 보려는 참을성 없는 시도로는, 파라다이스에 이르는 너희의 모든 여정에서, 결코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75:8.6 (846.5) 모든 것을 통틀어서 네바돈 전역에 있는 어떤 행성에서도 이처럼 가슴 아픈 지혜의 오용(誤用)은 아마도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족들이 진화하는 우주들의 관련사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거대한 창조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만사가 완전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의 우주는 완전하게 창조되지 않았다. 완전은 우리의 영원한 목표이지, 완전이 우리의 기원은 아니다.

75:8.7 (846.6) 만약 이것이 기계적인 우주였다면, 만약 첫째근원이며 중심이 단지 하나의 기세였다면, 또한 하나의 개인성이 아니었다면, 만약 모든 창조계가 불변하는 에너지 활동들로 특징 지워지는 정교한 법칙에 의해 지배받는 물리적 물질의 광대한 집합이었다면, 비록

우주 지위가 미완성이라고 해도, 그것은 완전이 지배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 어떤 의견 차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마찰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 완전이고 그리고 불완전의 진화하고 있는 우리의 우주 안에서, 우리는 의견 차이와 오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향유하는데, 이는 그것으로서 우주 안에 개인성의 사실과 행동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계가 만약에 개인성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하나의 실존이라면, 그렇다면 너희는 개인성 생존, 진보, 그리고 성취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개인성 성장, 체험 그리고 모험에서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우주 안에, 단순히 기계적이거나 아니 나아가 수동적으로 완전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개인적이고 진보적인 것이 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주인가!

75:8.8 (846.7) ["동산의 음성" 세라핌천사 솔로니아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76 편 두 번째 동산

76:0.1 (847.1) 아담이 첫 번째 동산을 낯-사람들에게 저항 없이 넘겨주기 위해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그와 그의 무리들은 서쪽으로 갈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에덴-사람들은 그러한 해양(海洋) 모험을 하기에 적당한 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북쪽으로도 갈 수 없었는데; 북쪽의 낯-사람들은 이미 에덴을 향해 쳐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 지역의 산들에는 적대적인 부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직 유일하게 열려있는 길은 동쪽 밖에 없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목초지를 향해 그 당시에 살기 좋은 지역인 동쪽으로 떠났다. 그리고 뒤에 남아 있던 사람들 대부분도 훗날 동쪽으로 찾아와서 그들의 새로운 골짜기 보금자리에서 아담-사람들과 다시 합류하였다.

76:0.2 (847.2) 카인과 산사는 둘 모두 아담의-카라반들이 메소포타미아 강 사이에 있는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태어났다. 산사의 어머니 라오타는 딸을 해산하다가 죽었다. 이브도 무척 산고(産苦)를 겪었지만 우월한 체력 덕분에 살아남았다. 이브는 라오타의 아이인 산사를 자기 품안으로 받아들여서 카인과 함께 길렀다. 산사는 큰

능력을 소유한 여인으로 성장하였다. 그녀는 북방에 있는 청색 인종의 족장인 사르간의 아내가 되어 그 당시의 청색 인종들의 진보에 기여하였다.

제 1 장. 에덴-사람들 메소포타미아로 들어감

76:1.1 (847.3) 아담의 카라반들이 유프라테스 강에 도달하는 데에는 거의 1년이 걸렸다. 도착하였을 때는 홍수기였으므로 그들은 강 왼쪽 평원에 천막을 치고 거의 6주간을 기다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두 번째 동산이 될, 강 사이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76:1.2 (847.4) 두 번째 동산의 땅에 살던 사람들은 에덴동산의 왕(王)이며 대제사장인 그가 자기들에게 오고 있다는 말을 듣자, 서둘러 동쪽 산들로 도망갔다. 아담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그들이 원하는 모든 지역이 비어있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지역에서 아담과 그의 조력자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짓고 문화와 종교의 새 중심지를 건설하는 일에 헌신하였다.

76:1.3 (847.5) 아담은 이 지역이 전에 반과 아마돈이 주축이 되어 동산을 준비할 때 동산의 임지로 추천되었던 세 지역들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당시에 두 강들은

그 자체가 천연적인 방어 역할을 하였고, 두 번째 동산의 약간 북쪽에서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가 서로 가까이 근접하였기 때문에 56마일에 달하는 방어벽이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쪽에 그리고 그 강들 사이에 건설하기만 하면 되었다.

76:1.4 (847.6) 새로운 에덴에 정착한 뒤로 원시적 삶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땅이 저주받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였다. 자연은 다시 한 번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제 아담-사람들은 개간되지 않은 토양에서 억척스럽게 살지 않으면 안 되었고, 필사자 실존에서 적대적이고 적합하지 않은 자연에 직면하면서, 삶의 실체들에 대처해야만 하였다. 그들은 첫 번째 동산은 부분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반면에, 두 번째 동산은 그들의 손이 일하여 “얼굴의 땀”속에서 창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 2 장. 카인과 아벨

76:2.1 (848.1) 카인이 태어난 지 2년이 못되어 아벨이 태어났으며, 그는 두 번째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자식이었다. 아벨이 12살이 되었을 때 그는

목동이 되기로 선택하였다; 카인은 이미 농사짓기를 선택하였다.

76:2.2 (848.2) 당시에는 소산물을 사제에게 제공하는 관습이 있었다. 목동들은 자신들의 양들을 가져왔고 농부들은 들판의 열매들을 갖고 왔으며; 이 관습에 따라서 카인과 아벨도 마찬가지로 사제들에게 절기마다 소산물을 제공했다. 두 소년은 여러 번 자기 직업이 더 좋다는 논쟁을 벌였고, 아벨은 자신의 동물 희생제물이 더욱 좋은 것임을 언급하는 데에 참을성이 없었다. 카인은 첫 번째 에덴의 전통으로 들판의 열매들을 제공했다는 선례를 여러 번 강조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아벨은 그 말에 수긍하지 않았고 자신의 형이 곤혹스러워할 때마다 비웃었다.

76:2.3 (848.3) 첫 번째 에덴 시절에 동물로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관습을 없애려고 아담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카인은 자신의 주장에 정당한 선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에덴에서 종교 생활을 조직하는 일은 무척 어려웠다. 아담은 건축, 국방, 농업 등이 연관된 수많은 세부적인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었다.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첫 번째 동산에서 이런 분야에서 일했던 낯-사람 출신의 사람들에게 경배와 교육의 조직체를 일임하고 있었다; 집례(集禮)하는 낯-사람 사제들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아담의-이전 시대 기준과 규칙들로 돌아가게 되었다.

76:2.4 (848.4) 두 소년은 한 번도 서로 잘 지내지 못하였으며, 희생 제물에 관한 이 문제로 그들 사이에 증오의 싹이 자라났다. 아벨은 자신이 아담과 이브 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카인에게 그가 아담의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곤 하였다. 카인의 아버지는 청색과 홍색 인종의 후기 혼혈이며 안돈의-후손 토착민 형질도 섞인 낯-사람 종족으로서, 순수한 보라색 인종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에, 본성적 호전성이 상속된, 카인에게는 자신의 동생에 대한 증오가 점점 더 커져 갔다.

76:2.5 (848.5) 그들이 각각 18세와 20세가 되었을 때, 그들 사이에 있어 왔던 긴장은 결국 끝장을 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아벨이 자기 형을 조롱하자, 카인은 분노가 폭발한 나머지 그를 죽이게 되었다.

76:2.6 (848.6)

아벨의 행위성을 관찰해 볼 때 환경과 교육이 성격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이 되는지를 시사해 준다. 아벨은 그의 모든 성격 저변에 이상적인 유전자와 자질을 갖고 있었지만, 열악한 환경은 실질적으로 이 훌륭한 기질을 중화시켜 버렸다. 아벨은 특별히 그의 어린 시절 동안 좋지 않은 주위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가 25세나 30세까지 살았다면, 그는 아마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그의 훌륭한 유전자가 결국 드러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환경이 비천한 유전자의 성격적 결함을 극복하는데 실제로 큰 공헌을 할 수 없는 반면에, 나쁜 환경은 뛰어난 유전자를 매우 효과적으로 망칠 수가 있으며, 적어도 어린 시절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좋은 사회적 환경과 적절한 교육은 좋은 유산을 최대로 발휘시키는데 필수적인 토양과 공기가 되는 것이다.

76:2.7 (849.1)

아벨의 개들이 주인 없이 양떼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담과 이브는 그가 죽었음을 알았다. 아담과 이브에게 있어서, 카인은 빠르게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냉혹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들은 그가 스스로 동산을 떠나겠다는 결심을 북돋아 주었다.

76:2.8 (849.2)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카인의 삶은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는 그런 특수한 방식으로 불이행의 상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불친절한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자신의 현존에 대해서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카인은 어떤 종족의 표시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산을 떠나면 우연하게 만나는 첫 번째 족속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공포와 자책으로 그는 회개를 하게 되었다. 그 때까지 카인에게는 조절자가 내주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는 항상 가족 단련에 도전적이었고 아버지의 종교를 경멸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어머니인 이브를 찾아가서 영적인 도움과 인도를 부탁하였고, 그가 정직하게 신성한 도움을 구했을 때, 조절자가 그에게 내주하였다. 그리고 내주하면서 내다보는 이 조절자는 카인에게 우월성에서의 뚜렷한 장점을 주었고, 이것이 그를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담 부족으로 분류하게 하였다.

76:2.9 (849.3) 그리하여 카인은 에덴의 동쪽에 있는 낫의 땅으로 떠났다. 그는 거기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거느리던 사람들의 한 집단을 만나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으며, 세라파타샤의 예상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카인은 일생을 통해서 낫-사람과 아담-사람 사이에 평화를 증진시켰기 때문이다. 카인은 자신의 먼 친족인 레모나와 결혼해서 아들 에녹을 낳았다. 에녹은 엘람에 사는 낫-사람들의 족장이 되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엘람 사람들과 아담-사람 사이에 평화가 계속되었다.

제 3 장.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생활

76:3.1 (849.4) 두 번째 동산에서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불이행의 결과들이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시아로 떠난 자기들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고요한 자신들의 이전(以前) 집을 무척 그리워하였다. 그토록 고상한 존재들이 물질계의 일반 육체로 전락해 있는 것을 지켜보기란 참으로 딱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하락된 지위를 은총과 감사로 받아들이었다.

76:3.2 (849.5) 아담은 자신의 자녀들과 연관-동료들에게 관리-행정과 교육 방법론들과 종교적 헌신에 대해서 훈련시키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현명하게 보냈다. 이러한 예지력이 없었다면 그가 죽은 뒤에는 그곳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을 것이다. 따라서 아담이 죽고 난 뒤에도 그의 사람들의 관련사들의 행위에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아담과 이브가 죽기 훨씬 전에, 이미 그들은 자식들과 추종자들이 에덴에서의 영광스런 나날들을 점차로 잊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에덴의 훌륭한 환경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몰랐다. 그것은 전보다 덜 갖추어진 환경에 있는 그들에게 비교적 불만족스러움을 덜 느끼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76:3.3 (849.6) 아담-사람의 행정 통치자들은 첫 번째 동산의 아들들로부터 세습적으로 유래되었다.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인 아담아들(아담의 아들)은 두 번째 동산의 북쪽에서 보라색 인종들의 두 번째 에덴을 세웠다. 아담의 둘째 아들 이브선도 훌륭한 영도자이자 행정-관리자가 되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큰 조력자였다. 그는 아담만큼 오래 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맏아들인 얀사드가 아담-사람
종족들의 수장으로 아담의 후계자가 되었다.

76:3.4 (849.7) 종교적 통치자들이나 사제신분은 셋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두 번째 동산에서 태어난 아담과 이브의
생존한 아들들 중에서는 맏아들로써, 아담이 유란시아에
온지 129년째 해에 태어났다. 셋은 자기 아버지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영적 지위를 개선하는 작업에
몰두하여 두 번째 동산에서 결성된 새 사제들의 수장이
되었다. 그의 아들 에노스는 새로운 경배의 순서를
만들었고, 그의 손자 케난은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가깝고도 먼 부족들에 대한 대외 선교사 봉사를 제정 했다.

76:3.5 (850.1) 셋 자손 사제들은 세 가지 업무를 맡았는데, 그
업무들은 종교와 건강과 교육이었다. 이 계층의 사제들은
종교 의식을 집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와 위생
검열자의 역할과 동산의 학교에서 교사로서 봉사하도록
훈련을 받았다.

76:3.6 (850.2) 아담 카라반들은 첫 번째 동산에서 수백 가지
식물의 씨앗과 뿌리들을 이 두 강 사이에 놓여있는 땅으로
가져왔으며; 또한 그들은 많은 소 떼들과 모든 종류의

길들여진 동물들 중 일부도 데리고 왔다. 이 때문에 그들은 주위에 있는 부족들을 능가하는 큰 이점들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기원적 동산에 있었던 이전의 문화에서 비롯된 많은 혜택들을 누렸다.

76:3.7 (850.3) 첫 번째 동산을 떠날 때까지 아담과 그의 가족들은 항상 과일, 곡류, 견과류 등을 먹고 살았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길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약초와 채소류를 먹었다. 두 번째 동산에 들어온 초기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아담아들과 이브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동산에서 태어난 일세(一世)들의 아이들까지도 모두 육식을 하지 않았다.

76:3.8 (850.4) 아담-사람들은 문명적 성취와 지적 발전에 있어서 주위 부족들을 크게 앞서게 하였다. 그들은 세 번째 알파벳을 만들어냈고 현대적 예술, 과학, 문학의 선구자적인 기초들을 정립하였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자리 잡은 이 땅에서 문자와 금속공예와 도예와 직조술을 유지하였고, 어떤 종류의 고안건축 양식을

개발했는데, 그 이후 몇 천 년 동안이나 그 보다 나은 건축 방식은 나오지 않았다.

76:3.9 (850.5) 보라색 인종의 가정생활은 그들의 시대와 시기에 맞는 이상적인 것이었다. 아이들은 농업, 항해술, 그리고 동물 사육의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셋 자손으로서의 세 가지 임무인: 사제와 의사와 선생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

76:3.10 (850.6) 그리고 셋 자손 사제들을 생각할 때, 고상하고 고양된 마음을 지닌 위생과 종교 교사들이었으며 동시에 진정한 교육자들이었던 그들을 후세의 부족이나 인접한 국가들에 존재했던 타락하고 상업적인 사제들과 혼동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신(神)과 우주에 대한 그들의 종교적인 개념들은 성숙되어 있었고 대체로 정확하였고, 그들의 위생 설비도 그 시대로서는 탁월하였으며, 교육 방식은 그 이후로 그것을 능가할 만한 것이 없었다.

제 4 장. 보라색 인종

76:4.1 (850.7) 아담과 이브는 유란시아에서 9번째로 나타난 사람 종족인 보라색 종족 인간들의 시조였다. 아담과 그의 자손들은 파란 눈을 가졌으며, 그리고 보라색 민족들은

하얀 피부와 밝은 머리카락 색깔—노란 색, 붉은 색, 그리고 갈색—이 특징이었다.

76:4.2 (850.8) 이브는 출산하는데 고통을 겪지 않았다. 그리고 초기의 진화 인종들 역시 그러하였다. 오직 낯-사람들과 그리고 나중에는 아담-사람들과 진화하는 사람의 연합에 의하여 산출된 혼혈 인종들만이, 심한 출산의 고통을 겪었다.

76:4.3 (851.1) 아담과 이브는 예루셈에 있는 자신들의 형제들처럼 이원적(二元的) 영양 보충 방식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음식과 빛, 유란시아에 계시되지 않은 초(超)물리적 에너지, 둘 모두로부터 보충했다. 그들의 유란시아 자손들은 에너지 흡수와 빛 순환회로의 자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의 단일 순환회로, 혈액 순환회로의 인간 유형을 가졌다. 그들은 비록 장수함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인간 평준에 가까워지긴 했어도, 오래-살았고, 그렇지만 필사자로 고안되었다.

76:4.4 (851.2)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 자녀들의 제 1 세대에서는 동물의 고기를 음식으로 삼지 않았다. 그들은 나무의

실과들만으로 살았다. 그러나 제 1세대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우유제품을 먹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들 중 다수가 육식을 하지 않는 관습을 따랐다. 그들이 후에 연합한 남쪽의 부족 역시 많은 수가 육식을 하지 않았다. 나중에 이 채식 부족의 대부분은 동쪽으로 이주해갔는데 그들의 후예들은 현재의 인도인들과 섞이게 되었다.

76:4.5 (851.3) 아담과 이브의 신체적 영적 통찰력은 지금-현재 민족들의 그것보다 우월하였다. 그들의 특별한 감각들은 매우 예민했으며 그들은 중도자들, 천사의 무리들, 멜기세덱들, 타락한 칼리가스티아 영주를 육안으로 볼 수 있었다. 특히 칼리가스티아는 자신의 고귀한 후임자와 협상하기 위하여 여러 번 왔었다. 아담과 이브는 불이행을 저지른 뒤 백년 이상 동안에도 이 천상의 존재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이 특수한 감각들은 자식들에게는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게 되었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차 사라져 갔다.

76:4.6 (851.4) 아담의-자녀들에게는 대개 조절자들이 내주하였는데, 그것은 그들 모두가 확실한 생존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우월한 자손들은 진화의

자손들과는 달리 두려움에 쉽게 굴복 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현재 유란시아 인종들은 많은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 조상들이 인종적 신체 향상을 위한 계획이 초기에 실패함에 따라 아담의 생명 원형질을 거의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76:4.7 (851.5) 물질아들들의 몸 세포와 그들의 자녀들은, 행성에 토착적인 진화하는 존재들보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훨씬 강했다. 태생적 종족의 몸 세포들은, 질병을 유발시키는 영역의 미생물이나 극미생물 유기체와, 친족이다. 이 사실이 왜 유란시아 사람들이 많은 육체적 질환들을 견디기 위해 그토록 과학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지를 설명해준다. 너희가 만약 너희들 속에 아담의-생명을 좀 더 많이 가졌더라면, 질병에 대해 훨씬 더 강하게 되었을 것이다.

76:4.8 (851.6) 유프라테스 지역에 두 번째 동산을 세운 후에, 아담은 자신이 죽은 뒤에 이 세상을 위해서 가능한 한 좀 더 많은 자신의 생명 원형질을 남기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브는 인종 개량 12인 위원회의 의장이 되었으며, 아담이 죽기 전에 이 위원회는 1,682명의 가장 뛰어난

유란시아 여인들을 뽑았고, 이 여인들에게 아담의-생명 원형질을 이식 받게 하였다. 그들의 아이들은 112명을 빼고 모두 어른으로 성장하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은 1,570명의 우월한 남녀가 나오게 되는 혜택을 입었다. 비록 이 후보 어머니들은 주위의 모든 부족에서 뽑혀 왔으며 지상의 거의 모든 종족들을 대표한다고 했지만, 다수의 후보자들은 낯-사람의 가장 뛰어난 종족들로부터 뽑혀졌고, 그들은 강한 안드-사람 종족의 기원을 이룩하였다. 이 아이들은 각자 자신들의 어머니들의 부족들 안에서 태어나고 양육되었다.

제 5 장. 아담과 이브의 죽음

76:5.1 (851.7) 두 번째 에덴이 건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뉘우침이 받아들여졌으며,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필사자의 숙명을 참아내도록 처지가 정해졌으며, 또한 유란시아의 잠자는 생존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확실하다는 통보를 정식으로 받았다. 그들은 멜기세덱들이 자신들에게 비장하게 선언한 부활과 명예회복의 이 복음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들의 위반은 판단 실수이었으며,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반역의 죄가 아니었던 것이다.

76:5.2 (852.1)

아담과 이브는 예루셈의 시민의 자격으로 있을 때에는 생각 조절자를 갖고 있지 않았고, 유란시아의 첫 번째 동산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생각 조절자는 그들 안에 내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필사자의 지위로 하락된 후 바로 얼마 후에 새로운 현존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인간의 지위는 진지한 뉘우침과 더불어 조절자가 그들에게 내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실현을 깨닫게 되었다. 조절자의 내주에 대한 이 인식은 아담과 이브에게 여생 동안의 큰 기쁨이 되었다. 그들은 사타니아의 물질아들의 임무는 실패하였지만, 우주의 아들들의 자격으로써 파라다이스로 상승하는 여정이 아직도 자신들에게 열려있음을 알았다.

76:5.3 (852.2)

아담은 자기가 그 행성에 도착함과 동시에 발생했던 섭리시대적인 부활에 관해서 알았고 그는 자신과 자신의 동행자는 아마도 아들관계의 다음 계층의 도착과 연결되어 다시 재(再)개인성구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는 우주의 통치자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그렇게 빨리 도래하리라는 것은 몰랐다. 그는 다음 번 아들로 아보날 계층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미가엘로부터 개인적인 기별을 받아들인 그들은, 어떤

것은 납득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항상 위안이 되었다. 그 기별은 우정과 위로가 깃들어 있었고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나는 그대들의 불이행에 대한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나는 그대들의 가슴속에는 내 아버지의 의지에 충성하려는 바람으로 가득 차 있음을 기억한다. 그리고 만약 내 영역의 하급 아들들이 그 전에 그대들을 부르러 가지 않는다면, 내가 유란시아에 내려갈 때 그대들을 필사자 수면에서 깨워 불러 주겠다.”

76:5.4 (852.3) 이것은 아담과 이브에겐 크나큰 신비였다. 그들은 이 기별 속에 특별한 부활의 가능성에 대한 약속이 숨겨져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한 가능성은 그들에게 용기를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그들은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직접 나타나는 날과 연관되어 일어날 부활의 시점까지 그들이 휴식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의 뜻은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에덴의 부부는 하느님의 아들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항상 선포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아니면 적어도 간절한 바람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것은 이 큰 과오와 슬픔의 행성이 어쩌면 우주의 통치자인 파라다이스 아들이 증여할 영역으로 선택될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기에는 너무나 굉장한 일이었다. 그러나 아담은 다툼으로 분열된 유란시아가 어쩌면 결국에는 전체 네바돈 행성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게 될, 사타니아 체계에서 가장 운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76:5.5 (852.4) 아담은 530년을 살았다. 그는 수명을 다한 늙은 나이로 인하여 죽었다. 단순히, 그의 육체적 기능구조가 낡아 버린 것이었다. 집대성-해체활동 과정이 고치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따라잡았고, 필연적으로 끝이 왔다. 이브는 약해진 심장으로 인하여 아담보다 19년 전에 죽었다. 거류민단의 성벽이 완성된 바로 후에, 계획에 따라 세워졌던 성스러운 예배봉사 장소인 성전 중앙에, 그들은 같이 매장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이 독실한 남자나 여자를 경배실 지하에 매장하는 실천 관행의 기원이 되었다.

76:5.6 (852.5) 멜기세덱들의 지도 아래에서, 유란시아의 초물질적 정부는 계속 유지되었지만, 진화적 인종들과의 직접적인 육체적 접촉은 단절되었다. 먼 과거에 행성영주의 유형 참모진들이 도착한 때로부터, 반과

아마돈의 시대를 거쳐 오면서 아담과 이브가 도래하기까지, 우주 정부의 물리적인 대리자들이 이 행성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45만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계속되어 온 이 정부는, 아담의-불이행로 인하여, 그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영적 구체들에서, 천사 조력자들은 생각 조절자들과 협력하며 계속해서 개별존재의 생존을 위해 둘 모두 영웅적으로 투쟁해 왔지만; 그러나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도래하기 전에는, 지상의 필사자들에게는 멀리-퍼져있는 세계의 복지를 위한 포괄적인 계획은 없었는데, 그는 아브라함 시대에 하느님의 아들의 능력과 인내심과 권위를 가지고 불운한 유란시아의 더 나은 향상과 영적 부흥을 이룩하기 위한 기초들을 마련하였다.

76:5.7 (853.1) 그러나 유독 불운만이 유란시아를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 행성은 네바돈의 지역우주에서 가장 운 좋은 행성이 되었다. 유란시아인들은 그들 선조들의 과오와 초기에 왔던 세계 통치자들의 오류 때문에 혼란스러운 절망 상태에 던져졌다. 모든 것이 갈수록 악과 죄에 의해 뒤죽박죽되었고 이러한 어두움은 네바돈 미가엘의 관심을 끌었다. 그리하여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에 찬 개인성을 계시하는 경기장으로 이 세계를 선택하셨다. 얽혀있는 관련사들의 질서를 위하여 유란시아가 창조자 아들을 필요로 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유란시아의 악과 죄는 창조자 아들로 하여금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비길 데 없는 사랑과 자비와 인내를 드러내는데 좀 더 강하게 대조가 되는 배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가 선택할 만한 곳이 되었던 것이다.

제 6 장. 아담과 이브의 생존

76:6.1 (853.2) 아담과 이브는 언젠가 죽음으로부터 깨어나 그들이 유란시아에서 보라색 인종들의 물질적 육체 속에서 그들의 임무를 맡기 전에 그들에게 그렇게 친숙했던 맨션세계들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게 되리라는, 멜기세덱들이 그들에게 하였던 약속을 강하게 믿으면서, 그들의 필사자의 휴식에 들어갔다.

76:6.2 (853.3) 그들은 영역의 필사자들이 겪는 무의식적 수면의 망각 속에서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아담이 죽은 뒤 3일 째, 그의 존경이 담긴 매장이 행해진 이틀 후, 라나휘지 계층들은, 에덴시아의 대리 지고자들에 의해 승인되고 미가엘을 대행하는 구원자별의 연합으로 늘 계신이의

찬성을 받았는데, 유란시아에서의 아담의-불이행의
현저한 생존자들에 대한 특별 출석 점호를 지도하는,
가브리엘의 손에 맡겨졌다. 그리고 유란시아 계열들 중
26번인, 이 특별 부활의 명령에 따라서, 아담과 이브는 첫
번째 동산을 체험한 그들의 1,316명의 연관-동료들과 함께
사타니아의 맨션세계들 중에 있는 부활의 공간에서
재(再)개인성구현되고 다시 모이게 되었다. 아담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많은 다른 충성스러운 혼들이 이미 전환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잠자던 생존자들과 그리고 살아있는
분별화된 상승자들, 둘 모두에 대한 섭리시대적 판결에
의해 수반되었다.

76:6.3 (853.4) 아담과 이브는 예루셈의 시민권을 획득할 때까지
진화적 전진의 세계들을 빠르게 통과하였는데, 그들은
다시 한 번 그들의 기원 행성에서 거주민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우주적 개인성의 다른 계급의 일원의 자격으로
오게 되었다. 그들은 영구 시민들—하느님의 아들들—의
자격으로 예루셈을 떠났고 그리고는 진보하는
시민들—사람의 아들들—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그들은 즉시 그 체계의 수도에서 유란시아를 돕는 봉사

배정되었다. 나중에는 현재 유란시아의 자문-통제 기관을 구성하는 24명의 조연자들 중의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76:6.4 (854.1) 이렇게 해서 유란시아 행성의 아담과 이브의 시련과 비극과 승리의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그 승리는 적어도, 의도는 좋았지만 현혹된 물질아들과 딸에게는, 의심할 바 없이 종국에 가서는, 그들의 세계와 반역으로 버림받고 악에 시달리던 거주민들을 위한 자신들의 궁극적인 개인적 승리였던 것이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아담과 이브는 인간 종족의 문명 발달을 가속시켰고 생물학적 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들은 지상에 위대한 문명을 남겼다. 하지만 그토록 진보된 문명은 일찍 희석되고 결국에는 아담의-유산마저 침수되고 마는 운명을 직면했던 그곳에서는 살아남기가 불가능했었다. 문명을 이룩한 것은 그 사람들이었다; 문명이 그 사람들을 만든 것이 아니다.

76:6.5 (852.1) ["동산의 음성" 세라핌천사인 솔로니아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77 편 중도 창조체

77:0.1 (855.1) 네바돈에 있는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 대부분에는, 그 세계의 필사자들의 생명-기능과 천사들 계층의 생명-기능 사이에 존재하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독특한 집단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중도(中途) 창조체라고 불린다. 그들은 시간 속에서 우연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지만,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되었고 조력자로서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들의 복합적인 행성 사명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계층들 중의 하나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77:0.2 (855.2) 유란시아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계층의 중도자들이 기능하는데: 1차 또는 선임 무리단은 먼 옛날인 달라마시아 시대에 출현하였고, 2차 또는 보다 어린 집단은 아담의 시대에 기원되었다.

제 1 장. 1차 중도자

77:1.1 (855.3) 1차 중도자들은 유란시아에서 물질적인 존재들과 영적인 존재들의 독특한 상호-연관에 의해서 탄생되었다. 우리는 다른 세계들과 다른 체계들 안에 있는 비슷한 창조체들의 실존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다른 기법에 의해서 기원되었다.

77:1.2 (855.4) 진화하는 행성 위에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아들들의 연속적인 증여들은 그 세계의 영적 질서에 현저한 변화들을 초래하고, 어떤 경우에는 행성 위에 있는 영적 그리고 물질적 대리자들의 상호-연관하는 활동들을 변형시켜서 정말로 납득하기 힘든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칼리가스티아 영주의 참모진 중에서 100명의 육체를 입은 요원들의 지위는 바로 그러한 독특한 상호-연관을 나타내는데: 예루셈에 있는 상승하는 시민들로서, 그들은 번식하는 특권을 갖지 못하는 초물질적 창조체들이었다. 유란시아에서는 하강하는 행성 사명활동자로서, 그들은 물질적인 자손을(그들 중의 일부가 나중에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낳을 수 있는 물질적 성(性) 창조체들이었다. 우리들이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이 100명의 존재들이 초(超)물질적 차원에서 어떻게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일이 그대로 발생되었던 것이다. 유형 참모진의 남성과 여성이 초물질적으로(성적(性的)이 아닌) 연락함으로써 처음으로 탄생된 1차 중도자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77:1.3 (855.5) 이 계층에 속한 창조체들, 필사자 차원과 천사 차원 사이에 있는 중도 존재들이 영주의 본부에서 발생하는

관련사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훌륭한 봉사를 할 수 있음이 즉각적으로 발견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유형 참모진 각 쌍은 비슷한 존재들을 형성하도록 허락이 내려졌다. 이러한 수고로 말미암아 첫 번째 집단인 50명의 중도 창조체들이 탄생되었다.

77:1.4 (855.6) 이러한 독특한 집단의 활동을 1년 동안 관찰한 연후에, 행성영주는 무제한적으로 중도자들을 재생산하도록 허락하였다. 이 계획은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수행되었으며, 따라서 50,000명에 해당하는 기원적 무리단이 존재하게 되었다.

77:1.5 (856.1) 각 중도자의 생산 사이에는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각 쌍으로부터 1,000명에 해당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태어난 후에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다. 그리고 1,000번째의 자손이 나타나자마자 이러한 힘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더 이상 시험을 계속하여도 항상 늘 실패하는 결과밖에 없었다.

77:1.6 (856.2) 이 창조체들은 영주의 관리-행정에서 정보 무리단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멀리까지 광범위하게 활동하였는데, 세상의 종족들을 연구하고 관찰하였으며,

행성 본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있어서 영주와 그의 참모진에게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매우 귀중한 봉사를 하였다.

77:1.7 (856.3) 이러한 체제는 행성에 반란이 일어나던 비극의 날까지 계속되었는데, 1차 중도자들 중에서 5분의 4를 조금 넘는 숫자가 미혹되었다. 충성스런 무리단은 멜기세덱 접수자들의 봉사에 들어갔고, 아담의 시대까지 명목상의 영도자관계인 반의 수하에서 활동하였다.

제 2 장. 낫-사람 종족

77:2.1 (856.4) 이상의 내용이 유란시아에 있는 중도 창조체들의 기원과 본성 그리고 기능에 대한 설명인데, 두 계층들—1차와 2차—간의 친족관계는, 행성 반란 시대로부터 아담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칼리가스티아 영주의 유형 참모진 중에서 반란에 가담한 요원들의 후손 혈통을 따라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1차 중도자들에 의한 이야기를 잠시 멈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동산의 초기 시대에, 두 번째 계층의 중도 창조체들의 조상의 절반을 제공한 것은 바로 이 유전적 혈통이었다.

영주의 참모진 중에서 육신을 입은 요원들은, 안돈 부족들로부터 선택된 혈통의 사람들과 연합하여, 그들의 특별한 계층의 병합된 본질특성을 체현하는 자손들을 생산하는 계획에 참여할 목적을 위하여 성(性) 창조체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아담이 출현할 것을 예상한 것이었다. 생명운반자들은, 아담과 이브의 첫 번째 세대 자손들과 영주의 참모진의 공동 자손의 연합을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의 필사자를 이미 계획해 놓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새로운 계층의 행성 창조체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놓았었고, 그들이 인간 사회의 선생 그리고 통치자들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한 존재들은 시민 정부의 통치가 아니라 사회적인 통치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거의 완벽하게 실패하였기 때문에, 유란시아가 양호한 지도력과 비길 데 없는 문화를 가진, 어떤 유형의 우수한 계층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형 참모진이 나중에 재생산되었을 때는, 이미 반란이 일어난 후였고 그들이 그 체계의 생명 흐름들과 연결이 이미 박탈당하고 난 뒤이었기 때문이다.

77:2.3 (856.6) 배반이 있는 이후의 시대에 유란시아에서는 진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하나의 위대한 문명—달라마시아의 문명—이 무너지고 있었다. “네페림(놏-사람)이 그러한 날에 땅 위에 있었고, 이들 하느님들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갔을 때 그들이 탄생하였으니, 그들의 자녀들은 ‘옛날의 막강한 사람들’, ‘명성을 얻은 자들’이었다.” 참모진과 그들의 초기 자손들은 도저히 “하느님들의 아들들”이 아니었지만, 그러한 옛 시대의 진화 필사자들에게는 그렇게 간주되었다; 그들의 모습까지도 전승에 의해서 과장되었다. 그 이후로 이것이 거의 전 세계적인 민간 설화의 기원이 되었는데, 하느님들이 땅 위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가졌고 영웅적인 옛 종족들을 탄생시켰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설은 두 번째 동산 안에서 나중에 나타나는 아담-사람들의 종족 혼합 사건들과 섞여 더욱 혼돈을 일으켰다.

77:2.4 (857.1) 영주의 참모진 중에서 육체를 입은 100명의 요원들이 안돈-사람의 인간 혈통들로부터 세포 원형질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성(性) 관계에 의해서 번식되었다면, 그들의 후손들은 모두 다른 안돈-사람

부모들의 자손들과 닮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낯을 추종하였던 60명의 배반한 참모들이 실재적으로 성(性)적인 번식에 참여하였을 때, 그들의 자녀들은 안돈-사람은 물론 산각 민족들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우월한 것이 입증되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이러한 탁월함은 육체적인 본질특성과 지적 본질특성 뿐만 아니라 영적 수용능력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다.

77:2.5 (857.2) 최초의 낯-사람 세대에서 나타난 돌연변이에 의한 이 특색들은, 안돈의-세포 원형질의 유전적 요소들로 인한 화학적 구조와 배열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특정한 변화들에 의한 결과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타니아 체계의 강력한 생명-유지 순환회로들이 그 참모진 요원들의 육체 속에 현존함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이 생명 순환회로들은, 특화된 유란시아 원형틀의 염색체들로 하여금 지정받은 네바돈 생명 현시활동의 표준화된 사타니아 특별성의 원형들을 더욱 닮도록 재조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그 체계 생명 기류들의 활동에 의한 이러한 세포 원형질 변형 기법은, 유란시아의 과학자들이 식물과 동물의 세포 원형질을 X 선을 이용하여 변형시키는 과정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77:2.6 (857.3) 그렇게 해서 낯-사람 민족들은 어떤 고유적이고 예상치 못하였던 변형에 의해서 발생되었는데, 안돈-사람 중에서 공헌한 육체들로부터 유형 참모진 요원들의 육체들 속으로 아발론 외과 의사들에 의해 옮겨졌던 생명 원형질 속에서 발생되었다.

77:2.7 (857.4) 100명의 안돈-사람 세포 원형질 기증자들이 차례로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유기체적 보완물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사타니아 생명 기류가 그들의 육체 속에도 마찬가지로 부여되었다는 사실이 생각날 것이다. 변형된 안돈-사람들 중에서 참모진을 따라 반란에 참여하였던 44명 역시 그들끼리 짝을 지었고 낯-사람 민족의 더 나은 혈통들을 이루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77:2.8 (857.5) 변형된 안돈-사람 세포 원형질을 갖고 있었던 104명을 포함하여, 이 두 집단들은 유란시아에 8번째 종족으로 나타난 낯-사람의 조상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유란시아에 있는 인간 생명의 이러한 새로운 특성은, 이 행성을 생명-변형 세계로 활용하려는 기원 계획이 실행된 다른 위상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것이었는데, 그 외에도 이것은 예상치 못하였던 발전들 중의 하나였다.

77:2.9 (857.6) 순수한 혈통의 낯-사람들은 하나의 훌륭한 인종이었지만, 그들은 점차적으로 이 세상의 진화적 사람들과 혼합되었고, 오래지 않아서 엄청난 퇴보가 발생되었다. 반란이 있는 지 10,0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그들의 평균 수명은 진화적인 종족들의 수명보다 약간 긴 정도까지 하락하였다.

77:2.10 (857.7) 고고학자들이 낯-사람들의 후대 수메르인 후손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점토층을 찾아냈을 때, 그들은 수천 년 전까지 거슬러 상승하는 수메르인 왕들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였으며, 이들 기록을 더 거슬러 올라가자, 각각의 왕들의 통치 기간이 25년 내지 30년으로부터 150년 또는 그 이상까지 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들 고대 왕들의 통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초기의 낯-사람 일부 통치자들이(영주 참모진의 직계 후손들) 그들의 후대 자손들보다 오래 살았음을 의미하며, 달라마시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왕조를 뺏쳐 다가가 보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77:2.11 (857.8) 오래 살았던 그러한 개별존재들에 대한 기록은 시간 계산에 있어서 월과 년을 혼돈한 것에서 기인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것은 아브라함에 관한 성경적 혈통과 중국의 초기 기록들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8일로 되어 있는 한 달 또는 계절이 후대에 소개된 350일이 조금 넘는 1년과 혼돈을 일으킨 것이 그러한 긴 인간 수명 전통을 만들게 하였다. 900“년” 이상을 살았다는 사람에 대한 기록도 있다. 이것은 70년이 조금 모자라는 기간에 해당하였으며, 그러한 삶은 매우 긴 기간으로 간주되었는데, “고희(古稀)”라는 삶의 기간이 나중에 명명되었다.

^{77:2.12 (858.1)} 28일을 한 달로 치는 시간 계산이 아담 시대보다 먼 훗날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약 7,000년 전에 이집트인들이 달력을 다시 만들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매우 정확하게 그것을 계산하였는데, 1년을 365일로 소개하였다.

제 3 장. 바벨 탑

^{77:3.1 (858.2)} 달라마시아가 물속으로 가라앉은 후에, 낯-사람들은 북동쪽으로 이동하여, 마침내 딜문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그들의 종족과 문화적 중심지로 건설하였다. 그리고 낯이 죽은 지 약 50,000년 후에, 영주의

참모진의 자손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들의 새로운 도시인
딜문을 둘러싸고 있는 가까운 지역의 땅에서 생계를
이어나갈 길을 찾기가 어려워졌고, 그리고 밖으로
뺏어나가면서 그들의 영역 경계선들과 인접하는 안돈-
사람들과 그리고 산각 부족들과 상호결혼하게 되자,
그들의 영도자들은 자기 종족 합일을 보존시킬만한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따라서 그 부족들의
협의회가 소집되었고, 늦의 후예인 바블롯의 계획을
심사숙고한 끝에, 그들은 그것에 합의하게 되었다.

77:3.2 (858.3) 바블롯은 그 당시에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중앙에 종족을 영화롭게 할 만한 거창한 성전을 세우자고
제안하였다. 이 계획에는 성전 안에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양의 탑을 세우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지금까지의 위대함을 기념하는
기념관이었다. 이 기념관을 딜문 안에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최초의
수도였던 달라마시아가 물에 잠겼다는 전승을 기억하고,
그러한 거대한 구조물은 바다에 의한 위험성으로부터
안전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장소에 세워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77:3.3 (858.4) 바블롯은 이 새로운 건물이 낫-사람의 문화와 문명의 미래적 중심지의 핵심을 이루도록 계획하였다. 그의 조언이 마침내 받아들여졌고, 그의 계획에 따라서 건축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그 도시는 그 탑의 고안건축가이며 건축자인 그의 이름을 따라서 바블롯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지역은 나중에 바블로드라고 알려졌고 결국에는 바벨이 되었다.

77:3.4 (858.5) 그러나 낫-사람들은 이 일의 계획과 목적에 관하여 여전히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도자들도 건축 계획이나 또는 그 건물들이 완성된 후의 용도에 대하여 전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4년 반 동안의 작업이 진행된 후에, 탑을 세우는 것에 대한 목적과 동기에 대하여 큰 논쟁이 일어났다. 그 다툼은 더욱 격심하게 되어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다. 음식을 나르던 자들이 그 분쟁 소식을 퍼뜨렸고, 그 부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 부지에 모여들었다. 그 탑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세 가지 다른 관점들이 제안되었다.

77:3.5 (858.6) 1.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가장 많은 큰 집단은, 낯-사람의 역사와 인종적 우월성을 기념하도록 세워진 탑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들은 모든 후세의 자손들이 경탄할 수 있도록 거대하고 당당한 구조물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77:3.6 (858.7) 2. 그 다음으로 숫자가 많은 무리들은 dilmun의 문화를 기념할 수 있도록 그 탑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그 바블룻 지역이 상업과 예술 그리고 제조업의 거대한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77:3.7 (859.1) 3. 가장 숫자가 적고 소수파인 무리는, 칼리가스티아 반란에 참여하였던 자기 선조들의 어리석음을 보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그 탑을 세우자고 고집하였다. 그들은 그 탑이 오직 모든 존재들의 아버지를 경배하는 일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과, 새로운 도시를 세우는 모든 목적은 달라마시아를 대신하는 것—주변에 있는 야만인들을 위한 문화적 종교적 중심지 기능을 하는—이라고 주장하였다.

77:3.8 (859.2) 종교적인 주장들은 즉각적으로 부결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반역의 책임이

있다는 가르침을 거부하였다; 그들은 그러한 인종적 오명(汚名)에 분개하였다. 세 가지 관점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두 가지가 논쟁에 의해서 부결되자, 사람들은 싸움에 빠져들었다. 아무도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 종교가들은 남쪽에 있는 그들의 고향으로 피하였지만, 그들의 동료들은 거의 사라질 때까지 싸웠다.

77:3.9 (859.3) 약 12,000년 전에, 바벨탑을 세우려는 두 번째 시도가 있었다. 안드-사람(놏-사람들과 아담-사람들)의 혼합된 종족들이 첫 번째 구조물의 폐허 위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려고 시작하였지만, 대규모 사업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일어나지 못했다; 이것은 그 자체의 야심찬 무게 때문에 무너졌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바벨의 땅으로 알려졌다.

제 4 장. 놏-사람들의 문명 중심지

77:4.1 (859.4) 놏-사람들의 분산은 바벨탑에 대한 살인적인 충돌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이러한 내란은 순수 놏-사람들의 숫자를 크게 줄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담의-이전 시대의 위대한 문명 건설에 그들이 실패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때부터 놏-사람의 문화는, 아담의-주입으로

발전될 때까지 120,000년 이상 동안 계속 퇴보하였다. 그러나 아담의 시대 동안에도 낫-사람들은 여전히 하나의 유능한 민족이었다. 그들의 혼합된 후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산 건축자들 속에 합류하였고, 반의 집단 지휘자들 중에서 몇몇 사람은 낫-사람들이었다. 아담의 참모를 도왔던 가장 유능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도 이 종족이었다.

77:4.2 (859.5) 네 개의 거대한 낫-사람 중심지들 중에서 세 개는 바블롯 투쟁 직후에 건설되었다:

77:4.3 (859.6) 1. 서부 즉 시리아의 낫-사람들. 민족주의자 또는 종족을 지키려는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북쪽으로 이동하였는데, 메소포타미아의 북서쪽에 후대의 낫-사람 중심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안돈-사람들과 연관하였다. 이들은 분산된 낫-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집단이었고, 나중에 나타난 아시리아인 혈통에 많이 기여하였다.

77:4.4 (859.7) 2. 동부 즉 엘람의 낫-사람들. 문화와 상업을 지지하던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엘람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산각 부족들과 연합하였다. 30,000년 또는 40,000년 전의 엘람 사람들은 본성적으로는

이미 주로 산적 종족이었지만, 그들은 주변에 있는 야만인들의 문명보다 우월한 문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77:4.5 (859.8) 두 번째 동산이 세워진 후에는, 근처에 있던 이 낫-사람 정착지를 “낫의 땅”으로 부르는 것이 관례였으며; 낫-사람 집단과 아담-사람들 사이에 비교적 평화로운 기간이 오래도록 계속되는 동안, 두 종족들의 피가 크게 섞였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들(아담-사람들)이 사람의 딸들(낫-사람들)과 상호 결혼하는 것이 점점 더 관습으로 되었기 때문이었다.

77:4.6 (860.1) 3. 중앙 즉 수메르인-이전 낫-사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들의 입구에 있는 작은 집단은 그들의 종족적 고결한-순수성을 좀 더 유지하였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끈질기게 유지되다가 결국에는 아담-사람들과 피가 섞여져서 역사 시대에서의 수메르 민족을 세운, 낫-사람 가계(家系)를 이루었다.

77:4.7 (860.2)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수메르인들이 어떻게 하여 그토록 갑자기 나타났는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활동 무대에서 신비하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해 준다.

너희는 아무리 조사하여도 수메르인들의 시초까지 거슬러 상승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며, 그들은 달라마시아가 물에 가라앉은 이후인 200,000년 전에 기원되었다. 이 세상의 어떤 지역에서도 그들의 기원을 추적할 수 없지만, 고대의 이 부족들은, 충분히-성숙되고 우월한 문화를 간직한 채 문명의 지평선 위에 갑자기 나타났는데, 성전들, 금속 기술, 농업, 동물들, 도예술, 직조술, 상업 법, 시민 정부 규칙들, 종교 예식, 그리고 진부한 글씨 체계를 갖고 있었다. 역사 시대가 시작될 무렵에, 달라마시아의 알파벳을 잃어버린 이후 부터 그들은 오랫동안 딜문에서 기원된 독특한 글씨 체계를 사용하고 있었다. 수메르인의 언어는, 비록 실질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셈 계통이 아니었다; 소위 아리아 어족(語族)과 공통점이 많았다.

77:4.8 (860.3)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남겨진 정교한 기록들이, 딜문이라는 초기 도시 근처의 페르시아 만에 위치하였던 주목할 만한 정착 지역을 설명하고 있다. 이집트인들은 이 도시를 고대의 영광스러운 딜맛이라고 불렀으며, 반면에 아담의 피가 섞인 후대 수메르인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낯-사람 도시들과 달라마시아를 혼동하여 이 셋을 모두

딜문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이미 고대 수메르인들의 토판(土版) 문서들을 발견하였는데, 이것들은 초기의 이 파라다이스를 “하느님들이 문명화되고 문화화된 생활에 대한 표본으로 인류를 축복한 곳”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람과 하느님의 파라다이스였던 이 딜문을 설명하는 이 토판들은 현재 많은 박물관들의 선반 위에서 먼지로 뒤덮인 채 조용히 잠들어 있다.

77:4.9 (860.4) 수메르인들은 첫 번째 에덴과 두 번째 에덴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담-사람들과의 광범위한 상호 결혼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있는 동산 거주자들을 계속하여 이질적인 족속으로 간주하였다. 훨씬 고대의 낫-사람 문화에 대한 수메르인의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딜문 도시의 천국과 같은 웅대한 전통들을 지키기 위하여 영화로운 후대의 이 추억들을 무시하였다.

77:4.10 (860.5) 4. 북쪽의 낫-사람들과 아마돈-사람들—반-사람들. 이 집단은 바블롯 투쟁이 있기 전에 조성되었다. 가장 북쪽에 있는 이 낫-사람들은, 낫과 그의 후손들의

지도 체제를 버리고 반과 아마돈을 추종한 사람들의 후손들이었다.

77:4.11 (860.6) 반의 초기 친족들 중의 일부는 그의 이름을 여전히 간직한 호숫가 부근에 정착하였고, 그들의 전통들은 그 부근에서 번성하였다. 아라랏 산은 그들이 신성시하는 산이 되었는데, 시나이 산이 히브리인들에게 의미를 갖는 것처럼 후대의 반-사람들에게 매우 비슷한 의미를 가졌다. 10,000년 전에, 반-사람인 아씨리아인 들의 선조들은, 자기들의 도덕법인 7계명이 아라랏 산에서 하느님들이 반에게 수여하셨던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들은 반과 그의 연관-동료인 아마돈이 아라랏산에 올라가 경배를 들어가 있는 동안 산 채로 지구로부터 그들이 들려 올려져 벗어났다고 굳게 믿었다.

77:4.12 (860.7) 아라랏 산은 북쪽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거룩한 산이었으며, 이러한 옛 시대에 대하여 너희가 알고 있는 전통들 대부분이 바빌로니아의 홍수 이야기와 관련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아라랏산과 그 지역이 노아의 홍수와 전 세계적인 홍수에 관한 유대인들의 후대 이야기 속에 짜 맞추어진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77:4.13 (860.8) 기원 전 약 35,000년경에, 아담아들은 자신의 문명 중심지를 설립하기 위하여 반-사람의 옛 정착지들 중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곳을 방문하였다.

제 5 장. 아담아들과 라타

77:5.1 (861.1) 2차 중도자들의 혈통 이전의 낯-사람을 묘사함에 있어서, 그들 가계(家系)의 반쪽에 해당되는 아담의-이야기가 이제 고찰될 것인데, 2차 중도자들 역시 아담아들의 손자들, 최초로 유란시아에 태어난 보라색 인종이기 때문이다.

77:5.2 (861.2) 아담아들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이 세상에 남아 있기로 선택한, 아담과 이브의 자녀들 집단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맏아들은 반과 아마돈으로부터 북쪽에 있었던 그들의 고원 지대 고향에 대해 종종 이야기를 들었으며, 두 번째 동산을 세운 후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 꿈꾸었던 이 땅을 찾아 나서기로 결정하였다.

77:5.3 (861.3) 이 때 아담아들은 120세였고 첫 번째 동산에서 낳은 순수한 혈통의 32명 자녀들의 아버지였다. 그는 자기 부모들과 함께 남기를 원했었고 그들을 도와서 두 번째

동산을 세웠지만, 자신의 짝과 자기들의 자녀들을 잃음으로써 크게 동요되었는데, 그들 모두는 지고자들의 보호를 받기로 선택한 다른 아담의-아이들을 따라서 에덴시아로 떠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77:5.4 (861.4) 아담아들은 유란시아에 있는 자기 부모들을 쓸쓸하게 남겨두고 싶지 않았고, 어려움이나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싫어하였지만, 두 번째 동산에 함께 머무는 것은 크게 불만족스러웠다. 그는 방어와 건축으로 이루어진 초기 활동에 많은 공헌을 하였지만, 기회가 나는 대로 북쪽으로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의 떠나감은 온통 즐거운 것이지만, 아담과 이브는 자기들의 만아들이 자기들 곁을 떠나, 낯설고 호전적인 세계로 떠나게 된 것을 무척 슬퍼하였으며,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

77:5.5 (861.5) 그가 어렸을 적에 상상하던 이 사람들을 찾아서, 27명의 무리가 아담아들을 따라 북쪽으로 갔다. 3년이 조금 넘었을 때 아담아들의 무리는 그들의 모험 대상이었던 곳을 실재적으로 발견하였으며, 그 사람들 중에서 그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한 여인을 발견하였는데,

그녀는 20세였고, 영주의 참모진의 마지막 순수 혈통을 가진 후손이라고 주장하였다. 라타라는 이름의 이 여인은, 자기 조상들 모두가 영주의 타락한 참모진들 중에서 두 사람의 후손들이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자기 종족의 마지막 사람이었고, 형제와 자매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었고, 자손 없이 죽을 것을 마음먹고 있었지만, 장엄한 아담아들을 만나고 나서 마음을 빼앗겼다. 그리고 에덴에 관한 이야기, 반과 아마돈의 예언이 어떻게 하여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듣게 되었을 때, 그리고 동산의 불이행에 관한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그녀에게는 오로지—아담의 계승자이자 아들인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관념은 빠르게 아담아들에게 자라났다,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그들은 결혼하였다.

77:5.6 (861.6) 아담아들과 라타는 67명의 자녀를 둔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영도자관계가 되는 하나의 위대한 혈통을 이루었지만, 그들은 그 이상이었다. 이 두 존재들 모두가 실제로 초인간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네 번째마다 독특한 계층에 속하였다. 그것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았다.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은 발생된 적이 없었다. 라타는 매우 당황하였지만—심지어는 미신에 사로잡히기도 하였음—, 아담아들은 1차 중도자들의 실존을 잘 알고 있었으며, 비슷한 어떤 일이 자기 눈앞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로 이상한 자녀가 태어나게 되자, 그는 그들을 따로 짝지어 주기로 결정하였는데, 하나는 남자였고 다른 하나는 여자였기 때문이었으며, 이렇게 하여 두 번째 계층의 중도자들이 기원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멈출 때까지, 100년 동안에 거의 2,000명이 존재하게 되었다.

77:5.7 (862.1) 아담아들은 396년을 살았다. 그는 여러 차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방문하였다. 매 7년마다 그와 라타는 남쪽으로 여행하여 두 번째 동산으로 갔으며, 그 동안에 그의 민족들의 안전에 관한 소식을 중도자들이 그에게 계속 전해주었다. 아담아들이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은 진리와 정의를 위한 하나의 새롭고도 독립적인 세계적 중심지를 세우는 일에 크게 봉사하였다.

77:5.8 (862.2) 그리하여 아담아들과 라타는 신기한 이 조력자들을 지휘할 수 있었는데, 이 협조자들은 진보를

이룩한 진리를 전파하는 일과, 영적인 생활과 지적인 생활 그리고 육신적인 생활의 보다 높은 표준을 펴뜨리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오래도록 살아 있는 동안 그들과 함께 수고하였다. 그리고 세계를 개선시키는 일에 있어서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은 그 후에 일어난 쇠퇴 과정에 의해서 충분히 가려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77:5.9 (862.3) 아담아들-사람들은 아담아들과 라타의 시대로부터 거의 7,000년 동안 높은 수준의 문화를 유지하였다. 그들은 나중에 이웃에 있는 낫-사람들 그리고 안돈-사람들과 섞이게 되었고, “옛날의 거대한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루어진 진보의 일부는, 후대에 유럽 문명에서 꽃을 피웠던 문화적 잠재의 잠복된 부분이 되어 계속 유지되었다.

77:5.10 (862.4) 이 문명 중심지는 코펫 다그 근처인, 카스피 해의 남쪽 끝 부분의 동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투르케스탄에 있는 구릉지 약간 위쪽은, 한 때 보라색 인종의 아담아들-사람들의 본부였던 흔적이 남아있다. 코펫 산맥의 낮은 구릉지에 있는 좁고도 오래된 비옥한 띠 모양의 땅에 자리 잡은 이러한 고원지대들 속에서는, 네

개의 서로 다른 집단인 아담아들의 후예들에 의해서 각각 구성된 네 개의 다양한 문화가 여러 기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나타났었다. 이 집단들 중에서 두 번째 집단이 서쪽으로 이동하여 그리스 지역과 지중해에 있는 섬들로 이주하였다. 나머지 아담아들-사람들은 북쪽과 서쪽으로 이주하여 유럽으로 들어갔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마지막 안드-사람 물결을 이룬 혼혈 혈통의 사람들이 따라갔으며, 그들도 역시 인도를 침입한 안드-사람-아리아인에 포함되어 있었다.

제 6 장. 2차 중도자

^{77:6.1 (862.5)} 1차 중도자들이 거의 초인간적 기원을 가진 것에 반하여, 2차 계층은 순수한 아담의-혈통이 선임 무리단의 가문과 공통되는 조상들의 인간화된 후손들과 연합하여 태어난 자손이다.

^{77:6.2 (862.6)} 아담아들의 자녀들 중에서 2차 중도자들의 독특한 선조들은 오직 16명만이 있었다. 이러한 독특한 자녀들은 똑같은 숫자의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쌍들은 성(性) 연락과 성(性) 연락이 아닌 병합된 기법에 의해서 매 70일마다 2차 중도자를 출산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그 전에는 지구 위에서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결코 발생한 적이 없었다.

77:6.3 (862.7) 이 16명의 자녀들은 그 세상의 필사자들처럼 살다가 죽었지만(그들의 특성을 제외하고는), 전기적으로 충전된 그들의 자손들은 계속 생명이 유지되었고, 필사 육체의 한계를 겪지 않았다.

77:6.4 (862.8) 8쌍 각각은 결국에는 248명의 중도자들을 출산하였고, 기원적인 2차 무리단—1,984명—은 그렇게 하여 실존하게 되었다. 2차 중도자들에게는 8개의 하위(下位) 집단들이 있었다. 그들은 첫 번째 A-B-C, 두 번째 A-B-C, 세 번째 A-B-C 등으로 불렸다. 그 다음에는 첫 번째 D-E-F, 두 번째 D-E-F 등이 있다.

77:6.5 (862.9) 아담의 불이행이 있는 후에 1차 중도자들은 멜기세덱 접수자들의 봉사로 되돌아갔으나, 반면에 2차 집단은 아담아들이 죽을 때까지 아담아들 중심에 소속되었다. 이 2차 중도자들 중에서 33명은 아담아들이 죽게 되자 그들 조직의 우두머리들이 되었는데, 멜기세덱의 봉사에 전체 계층을 휩쓸고 가서, 거기서 1차 무리단과의 연락에 영향을 주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일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동행자들을 버리고 한 몸이 되어 행성 접수자들의 봉사로 갔다.

77:6.6 (863.1) 아담아들이 죽은 후에, 2차 중도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은 유란시아에서 소외되고, 조직이 없고, 아무데도 속하지 않은 영향력이 되어갔다. 그 때부터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시대까지, 그들은 불규칙하고 조직되지 않은 실존에 이르게 되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멜기세덱의 통제를 받았지만, 그리스도 미가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많은 해독을 끼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장래 운명에 대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충성스러운 대다수는 그 때 1차 중도자들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

제 7 장. 반란의 중도자

77:7.1 (863.2) 대부분의 1차 중도자들은 루시퍼 반란 시에 죄를 범하였다. 행성 반란에 의하여 황폐한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손실들 가운데에서, 본래의 50,000명 중 40,119명이 칼리가스티아의 탈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77:7.2 (863.3) 2차 중도자의 본래 숫자는 1,984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873명은 미가엘의 통치에 가담하기를 거부하였고 오순절 날에 유란시아에 내려진 행성 판결에 따라서 정식으로 감금되었다. 타락한 이 창조체들의 장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77:7.3 (863.4) 두 집단의 반란 중도자들은 체계 반란의 관련사들에 대한 최종 판결을 기다리면서, 보호관리 안에 현재 붙잡혀 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의 행성 섭리시대가 개시되기 전에 이상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다.

77:7.4 (863.5) 불충한 이 중도자들은 특별한 환경 아래에서는 필사자들의 눈앞에 자기들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으며, 특별히 이것은 배신한 2차 중도자들의 영도자인 바알세불의 연관-동료들에게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독특한 창조체들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때까지 이 세상에 역시 존재하였던 반란에 가담한 어떤 케루빔들 그리고 세라핌천사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고대의 어떤 작가들은 반항하는 이 중도 창조체들을 악한 영들과 귀신들로 표현하였고, 배신한 세라핌천사들을 악한 천사들로 표현하였다.

77:7.5 (863.6) 증여된 파라다이스 아들의 삶 이후에는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이 어떤 필사자 마음도 사로잡을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오기 전에는—생각 조절자들이 우주적으로 도래하기 전, 그리고 주(主)의 영이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지기 전에는—반란에 가담한 이 중도자들이 실재적으로 어떤 열등한 필사자들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었고 그들의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다. 이것은 초인간적인 지능 존재들과 접촉하는 기간 동안 사실상 그 개인성으로부터 조절자가 분리된 경우에 충성스러운 중도자들이 유란시아의 운명예비무리단의 인간 마음에게 효과적인 접촉 보호관리자로서 봉사하면서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에도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77:7.6 (863.7) 그 기록이 이렇게 진술하였을 때 그것은 단순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이 온갖 종류의 병든 자들을 그 분에게 데려왔는데,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과 정신 이상자들이었다.” 예수는 정신병과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의 차이를 알고 있었고 구별하였지만, 그 당시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태들을 크게 혼동하고 있었다.

77:7.7 (863.8) 심지어는 오순절 이전에도, 반란에 가담한 어떤 영이든지 정상적인 인간 마음을 지배할 수 없었으며, 그 날 이후로는 연약한 마음을 소유한 열등한 필사자들도 그러한 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진리의 영이 도착한 이후로 마귀들이 쫓겨나는 것으로 상상하는 것은, 히스테리와 정신이상 그리고 정신박약을 마귀 들린 것으로 믿는 혼동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미가엘의 증여가, 마귀에게 사로잡힐 가능성으로부터 유란시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언제까지나 해방시켰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전 시대에도 그러한 것이 실체가 아니었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77:7.8 (864.1) 반란에 가담한 모든 중도자들은 현재 에덴시아의 지고자의 명령에 의하여 감옥에 갇혀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세계를 방황하면서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생각 조절자들의 현존에 상관없이, 모든 육체에게 진리의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종류 또는 어떤 계급의 불충한 영들이든지 가장 연약한 인간 마음이라도 다시 침입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불가능하게 되었다. 오순절 날 이후로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은 다시 생길 수 없다.

제 8 장. 연합된 중도자

77:8.1 (864.2) 이 세상에서의 최근의 마지막 판결에서, 시간에서 생존되어 잠을 자는 자들을 미가엘이 철수시켰을 때, 중도 창조체들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는데, 그 행성 위에서 영적인 일과 반(半)영적인 일을 돕도록 남게 되었다. 그들은 현재 단일 집단으로 일하고 있으며, 두 계층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 숫자는 10,992명이다. 유란시아의 연합 중도자들은 각 계층의 선임 요원에 의해서 번갈아가며 통치되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오순절 직후에 하나의 집단으로 합병될 때부터 달성되었다.

77:8.2 (864.3) 보다 오래된 또는 첫 번째 계층의 요원들은 대개 숫자로 알려져 있는데, 마치 첫 번째 1-2-3, 첫 번째 4-5-6 등과 같은 이름이 주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란시아에서 아담의-중도자들은 1차 중도자들의 숫자에 의한 호칭으로부터 그들을 구별시키기 위하여 알파벳에 의해서 호칭한다.

77:8.3 (864.4) 두 계층들은 영양물과 에너지를 섭취하는 면에서 볼 때에는 비(非)물질적 존재들이지만, 인간적인 특색들을 많이 갖고 있으며 너희의 유머뿐만 아니라 너희의 경배도

즐기고 알아들을 수 있다. 필사자들에게 달려있는 때에는, 그들은 인간의 활동, 휴식, 오락의 영 안으로 빠져 들어간다. 그러나 중도자들은 잠을 자지 않으며, 번식하는 힘도 갖고 있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는 두 번째 집단은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에 따라서 계통이 나뉘어 있는데, 종종 "그" 또는 "그녀"로 호칭되기도 한다. 그들이 그러한 쌍으로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77:8.4 (864.5) 중도자들은 사람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천사도 아니지만, 2차 중도자들은 본성적으로 천사보다는 사람에게 가까우며; 그들은 어떤 면에서 너희 인종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존재들과 접촉함에 있어서 매우 납득을 잘하고 동정심을 느끼며; 그들은 인류의 다양한 민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함에 있어서 세라핌천사들에게 매우 귀중한 존재들이고, 필사자들의 개인적인 수호자로 봉사하는 세라핌천사들에게 두 집단들 모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다.

77:8.5 (864.6) 유란시아의 연합된 중도자들은 타고난 자질과 후천적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집단들 속에서 행성 세라핌천사들과 함께 봉사하기 위하여 조직되어 있다:

77:8.6 (864.7) 1. 중도 메신저. 이 집단은 이름을 갖고 있다; 숫자가 적은 집단들이며, 신속하면서도 신뢰할만한 개인적 통신에서의 봉사에서 진화적인 세계를 크게 돕는다.

77:8.7 (864.8) 2. 행성 파수자. 중도자들은 우주 세계들의 수호자들, 파수자들이다. 그들은 그 세계의 초자연적 존재들에게 들어오는 통신 유형들과 수많은 현상들 전체에 대한 관찰자로서의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한다. 그들은 그 행성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감시한다.

77:8.8 (865.1) 3. 접촉 개인성. 물질세계들의 필사 존재들과 접촉을 이름에 있어서, 지금 이 통신들을 전송받은 주체에서의 경우처럼, 중도 창조체들이 항상 이용된다. 그들은 그러한 영적 차원과 물질적 차원의 연락에서 필수 요소이다.

77:8.9 (865.2) 4. 진보 조력자. 이들은 더욱 영적인 중도 창조체들이며, 지구상에 있는 특별한 집단들 속에서 작용하는 세라핌천사들의 다양한 계층들의 보좌관으로서 배치되어 있다.

77:8.10 (865.3) 중도자들은, 위로는 세라핌천사들과, 그리고 아래로는 그들의 인간 사촌들과 접촉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매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 이를테면, 1차 중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물질적인 대리자들과 직접 접촉을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들은 천사 형태의 존재에 현저하게 가까우며 그렇기 때문에 대개 그 행성 위에 거주하는 영적 무리와 함께 일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배정된다. 그들은 동행자로서 활동하며 천상(天上)의 방문자들과 학생 체류자들을 안내하고, 반면에 2차 창조체들은 그 세계의 물질적인 존재들을 돌보는 일에 거의 배타적으로 배정되어 있다.

77:8.11 (865.4) 1,111명의 충성스러운 2차 중도자들은 지구상에서 중요한 임무에 가담하고 있다. 그들의 1차 연관-동료들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은 단연코 물질적이다. 그들은 필사자의 시력 범위 바로 바깥에 존재하며, 인간들이 "물질적 사물들"이라고 부르는 것과 의지적으로 육체적 접촉을 하도록 적응시키는 충분한 범위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창조체들은 시간과 공간의 사물들에 대하여 특정한 한정적 힘을 갖고 있으며, 그 세계의 짐승들도 예외가 아니다.

77:8.12 (865.5) 천사들의 탓으로 돌려지는 보다 엄밀한 현상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2차 중도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어 왔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초기의 선생들이 그 당시의 무식한 종교 영도자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실재적인 “주님의 천사”가 “밤에 감옥의 문을 열고 그들을 내보내 주었다.” 그러나 헤롯의 명령에 의해 야고보가 처형된 후에 베드로를 해방한 경우에 있어서, 천사의 탓으로 돌려진 그 일을 수행한 것은 2차 중도자였다.

77:8.13 (865.6) 오늘날 그들의 주된 업무는 운명적인 행성 예비무리단을 구성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개인-연락이자 연관-동료로서 하는 일이다. 유란시아에서 개인성들과 환경 조건들의 조화-협동을 불러일으키어, 천상(天上)의 행성 감독자들이, 이 소개가 그 일부분이 되고 있는 연속으로 된 계시들을 가능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만든, 저들 청원(請願)들을 개시하도록 최종적으로 유도하였던 것은, 이 2차 집단, 특정한 1차 무리단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두 번째가 된 이들의 활동이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만 할 것은, 중도 창조체들은 일반적으로 “강신론”이라고 알려진 그러한 상황 아래에서 자행되는 지저분한 조작극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유란시아에 제시되어 있는 중도자들은, 그 전체가 명예를 받을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소위 “영매”라 불리는 현상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들은, 통상적으로는, 필요한 물질적인 활동이나 또는 물질세계와의 어떤 다른 접촉을, 인간의 감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렇게 인간이 목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9 장. 유란시아의 영구적인 시민

^{77:9.1 (865.7)} 중도자들은 필사 창조체와 천사 무리들 같이, 진화하면서 상승하는 존재들과는 대조적으로, 우주들에 두루 있는 세계들의 다양한 계층들 속에서 발견되는 영구 거주자들 중에서 첫 번째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영구적인 시민들은, 파라다이스를 향해 상승하는 다양한 지점에서 만나게 된다.

^{77:9.2 (866.1)} 어느 행성에서 사명활동하도록 배정된 천상의 존재들의 다양한 계층들과는 달리, 중도자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서 산다. 세라핌천사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중도 창조체들은 현재 남아 있고 앞으로도 남아있을 것이며, 그 행성의 원주민들이 되기 위하여 공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라핌천사 무리의 변화하는 관리-행정과 연결하고 협동을 이루는 하나의 계속적인 체제를 제공한다.

77:9.3 (866.2) 유란시아의 실재적인 시민들인 그 중도자들은 이 구체의 운명에 있어서 친족관계의 관심을 갖고 있다. 그들은 단호한 관계적-연합을 이루면서, 그들이 태어난 행성의 진보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그들의 결심은 그들 계층이 내걸고 있는 좌우명에 의해서 암시되는데: “연합된 중도자들이 약속한 것은, 연합된 중도자들에 의해 이룩된다.”

77:9.4 (866.3) 에너지 순환회로를 따라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어떤 중도자든지 행성을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주의 주권자들에 의해서 언젠가 방면될 때까지 그 행성을 떠나지 않겠다고 개별적으로 그들 스스로에게 맹세하고 있다. 중도자들은 빛과 생명의 시대가 정착될 때까지 행성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첫 번째 1-2-3에 대한 예외가 있지만, 충성스러운 중도 창조체들 중에서는 한 명도 유란시아를 떠난 적이 없다.

77:9.5 (866.4) 1차 계층의 최고 고참인 첫 번째 1-2-3은, 오순절 직후에 직접적인 행성 임무에서 해제되었다. 고귀한 이 중도자는 행성 반란이 있었던 비극적인 날들 동안에 반과 아마돈과 함께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켰으며, 그의 용맹스러운 지도력은 자기 계층 속에서 불상사가 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는 현재 예루셈에서 24명의 조연자들 중의 하나로 봉사하고 있는데, 오순절 이후에 한 때 유란시아의 총독으로 이미 활동하였었다.

77:9.6 (866.5) 중도자들은 행성에 묶여 있지만, 필사자들이 먼 곳으로부터 온 여행자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지구상에 있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 관하여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도자들도 천상의 여행자들과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우주의 멀리 있는 지역에 관하여 배운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이 체계와 우주에 대하여 그리고 심지어는 오르본톤과 그의 자매 창조계들에 대하여 정통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하여 창조체 실존의 높은 차원 위에서 시민 자격을 갖추도록 스스로를 준비한다.

77:9.7 (866.6) 중도자들은 충만하게 발달된 실존으로 나왔지만
반면에—미숙한 상태에서부터 자라거나 발달하는 기간을
체험하지 않음—, 지혜와 체험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자라왔다. 필사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진화하는
창조체들이며, 진화에 의해서 성실하게 성취한 문화를
소유하고 있다. 유란시아의 중도자 무리단 가운데에는
위대한 마음과 막강한 영을 소유한 자들이 많이 있다.

77:9.8 (866.7) 보다 넓은 측면에서 본다면 유란시아의 문명은
유란시아의 필사자들과 유란시아의 중도자들에 의한 협동
작품이며, 두 문화 사이의 차원이 현재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이며, 그 차이는 빛과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보정되지 않을 것이다.

77:9.9 (866.8) 불멸하는 행성 시민들로서의 산물인 중도자들의
문화는, 인간의 문명을 괴롭히는 일시적인 변천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면역이 되어 있다. 사람 세대들은
잊어버리지만; 중도자 무리단은 기억하고 있으며, 그
기억은 너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전통들을 담고 있는
보고(寶庫)이다. 그래서 한 행성의 문화는 그 행성 위에
언제나 남아 있게 되며, 예수의 삶과 가르침들에 관한

이야기도 유란시아의 중도자들에 의해서 육신 속에 있는 그들의 사촌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처럼, 적당한 환경이 되면 그렇게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기억들이 활용될 수 있게 된다.

77:9.10 (867.1) 중도자들은 아담과 이브의 죽음에 따라 나타난 물질적 관련사들과 영적 관련사들 사이의 간격을 보정하는 노련한 사명활동자들이다. 그들은 너희의 형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유란시아에 빛과 생명의 정착된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오랫동안의 투쟁 속에서의 전우이다. 연합 중도자들은 반역-시험을 거친 무리단이며, 그들은 이 세계가 오랜 세월의 시대적 목표들을 달성할 때까지, 사실상 평화가 지구 위에 임하고 진리 안에서 선한 뜻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자리 잡는 먼 훗날까지, 행성의 진화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것이다.

77:9.11 (867.2) 이 중도자들에 의해 수행된 가치 있는 활동들로 인하여, 우리는 그들이 영역의 영 계층에 있어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반역에 의해 행성의 관련사들이 훼손되지 않은 곳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세라핌천사들을 크게 도와주고 있다.

77:9.12 (867.3) 높은 영, 천사무리, 그리고 중도 동료들의 전체 조직은 진화 필사자의 진보하는 상승과 완전성 달성을 위한 파라다이스 계획,—하느님을 사람에게 내려 모셔오고, 다소 장엄한 동반자관계로서, 사람을 하느님께로 위로 옮기고 그리고 봉사의 영원과 달성의 신성을 진행하게 하는—필사자와 중도자 똑같이 모두를 위한 우주의 숭고한 사업의 하나를 추진하는 데에 열광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77:9.13 (867.4) [네바돈의 천사장에 의해서 제시되었음]

제 78 편 아담 시대 이후의 보라색 종족

78:0.1 (868.1) 두 번째 에덴은 거의 30,000년 동안 문명의 요람이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곳에서 아담의-민족들이 퍼져나갔는데, 자기 자손들을 땅 끝까지 보냈고, 낫-사람들과 산각 부족들과 섞이게 되면서, 안드-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지역으로부터 그 남자들과 여자들이 나오게 되어, 역사 시대의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유란시아의 문화적 진보를 크게 증진시켜 왔다.

78:0.2 (868.2) 이 글에서는 보라색 종족의 역사가 서술될 것인데, 기원전 약 35,000년에 있었던 아담의 불이행 직후부터

시작하여, 기원전 약 15,000년경의 낫-사람들 그리고 산각 부족들과의 혼합을 거쳐, 안드-사람 민족이 형성되기까지 그리고 기원전 약 2,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본거지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라지기까지가 거론될 것이다.

제 1 장. 종족과 문화의 분포

78:1.1 (868.3) 아담이 도착하였을 때, 그 종족들의 마음과 도덕이 낮은 차원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진화는 칼리가스티아 반란의 급박한 사태에 크게 영향 받지 않고 있었다. 그 종족들의 생물학적 지위에 대한 아담의 기여는, 그 임무의 부분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유란시아에 있는 민족들을 크게 증진시켰다.

78:1.2 (868.4) 또한 아담과 이브는 인류의 사회적, 도덕적, 그리고 지적 진보에 유익한 많은 것들에 기여하였다; 문명은 그들의 자손의 현존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졌다. 그러나 35,000년 전에는 세상에 문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었다. 특정한 문명 중심지들이 여기저기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란시아는 야만인의 상태에 있었다. 종족과 문명의 분포는 다음과 같았다:

78:1.3 (868.5) 1. 보라색 인종—아담-사람들과 아담아들-사람들.

아담-사람의 대표적인 문화 중심지는 두 번째 동산에 있었는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삼각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정말로 서방(西方)과 인도 문명의 발상지였다. 보라색 인종의 두 번째 또는 북쪽 중심지는 아담아들-사람의 본부였고, 코펫 산맥 근처에 있는 카스피 해의 남부 해변 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두 중심지들로부터, 모든 종족들에게 매우 즉각적으로 활기를 띠게 하였던 문화와 생명의 원형질이 주변 지역들로 퍼져 나갔다.

78:1.4 (868.6) 2. 이전(以前)-수메르인과 다른 낫-사람들.

달라마시아 시대의 고대 문명 유물이 역시 그 강들의 입구에서 가까운 메소포타미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수천 년이 흘러가면서, 이 집단은 북쪽에 있는 아담-사람들과 전반적으로 섞이게 되었지만, 그들은 낫-사람의 전통을 전적으로 잃어버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레반트 지역에 정착하였던 다양한 다른 낫-사람 집단들은 후대에 팽창된 보라색 종족에 의해서 대개 흡수되었다.

78:1.5 (869.1) 3. 안돈-사람들은 아담아들 본부의 북동쪽에 있는 5개 내지 6개의 매우 전형적인 정착지들을 유지하였다. 또한 그들은 투르케스탄 전역으로 퍼졌고, 반면에 유라시아 전체로 이어지는 섬들에서 고립되었는데 산악 지역에서는 특별히 더하였다. 이 원주민들은 유라시아 대륙의 북쪽 지역과 아이슬란드 그리고 그린란드에서 여전히 기거하고 있었지만, 유럽 평원에서는 청색 인종에 의해서 오래 전에 쫓겨났고, 더 먼 곳에 있었던 아시아의 하천 계곡지역으로부터는 팽창하는 황색 인종에 의해서 쫓겨났다.

78:1.6 (869.2) 4. 적색 인종은 아메리카를 장악하였는데, 아담이 도래하기 50,000년 전에 아시아에서 쫓겨났었다.

78:1.7 (869.3) 5. 황색 인종. 중국의 민족들은 동부 아시아 지역을 통제하면서 잘 정착되었다. 가장 발달된 그들의 정착지는 현대 중국 북서부의 티베트에 인접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78:1.8 (869.4) 6. 청색 인종. 청색 인종은 전 유럽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문화 중심지는 지중해 분지의 비옥한 계곡들과 유럽 북서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네안데르탈인과 합쳐짐으로써 청색 인종의 문화는 크게
되보되었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들이 유라시아의
진화하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모험심이
강하였으며 탐구심이 깊었다.

78:1.9 (869.5) 7. 이전(以前)-드라비다 종족의 인도. 인도에서
있었던 인종들 간의 복잡한 혼합—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족들을 포함하였는데, 특히 녹색과 오렌지색 그리고
검은 색 인종이었음—은 외곽 지역의 문화보다 약간 높은
문화를 유지하게 하였다.

78:1.10 (869.6) 8. 사하라 문명. 남색 인종의 우월한 요소들이
현재의 거대한 사하라 사막을 이룬 곳에서 그들 나름으로
가장 앞선 진보를 이룩하였다. 이 남색-검은색 집단은
사라진 오렌지색 인종과 녹색 인종의 혈통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다.

78:1.11 (869.7) 9. 지중해 분지. 인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피가
섞인 종족이 현재의 지중해 분지가 있는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다. 북쪽으로부터 온 청색 인종과 남쪽으로부터 온
사하라인 들이 이곳에서 마주쳤고 동쪽에서 온 노-사람과
아담-사람들과 섞였다.

78:1.12 (869.8) 이것이 약 25,000년 전에 보라색 인종의 엄청난 확대가 시작되기 전의 세상 모습이었다. 미래의 문명을 위한 가능성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강들 사이에 있는 두 번째 동산 속에 숨어 있었다. 아시아의 남서부인 이곳에, 거대한 문명의 잠재, 달라마시아 시대와 아담 시대로부터 구출되어 온 관념들과 이상들이 온 세계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78:1.13 (869.9) 아담과 이브는 제한적이기는 하였지만 강력한 후손들을 남겨두었으며, 유란시아에 있는 천상(天上)의 관찰자들은 과오를 범한 물질아들과 딸의 후손들이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몹시 보고 싶어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제 2 장. 두 번째 동산에서의 아담-사람들

78:2.1 (869.10) 아담의 아들들은 수천 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강들 근처에서 힘들게 생활하였는데, 남쪽에서는 관개 및 홍수 통제(=治水)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북쪽에서는 방어 설비들을 완전하게 만들며, 첫 번째 에덴의 영화로운 전통들을 보존하고자 하였다.

78:2.2 (869.11) 두 번째 동산의 영도자관계 가운데에서 나타났던
영웅적인 자질은 유란시아 역사에 있는 놀랍고도 영감을
주는 서사시들의 한 장면을 구성하였다. 뛰어난 혼(魂)을
가졌던 이 사람들은 아담의-임무가 가졌던 목적을 전혀
잊어버린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부족들의 세력과 용맹스럽게
싸우는 동시에, 가장 정선된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이
세상에 있는 종족들에게 꾸준히 메신저로 파견하는
일을 기꺼이 담당하였다. 어떤 때에는 이러한 확대가
본고장의 문화를 고갈시키기도 하였지만, 우월한 이
민족들은 항상 스스로 회복시킬 수 있었다.

78:2.3 (870.1) 아담-사람의 문명과 사회 그리고 문화 상태는
유란시아에 있는 진화적 종족들의 일반적인 차원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오직 반과 아마돈의 옛 정착지들과
아담아들-사람들 속에서만이 어느 정도 비교될만한
문명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에덴의 문명은
인공적인 구조였으며—진화된 것이 아니었다.—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적인 진화 차원에 도달할 때까지
되보될 수밖에 없었다.

78:2.4 (870.2) 아담은 위대한 지적인 영적 문명을 남겨주었지만, 모든 문명이 이용 가능한 천연 자원과 천부적인 재능 그리고 창의적인 성과를 보증할만한 충분한 여가 시간의 부족으로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기계적인 장치에 있어서는 발전되지 못한 상태였다. 보라색 인종의 문명은 아담의 현존과 첫 번째 에덴의 전통에 입각한 것이었다. 아담이 죽은 후에 그리고 수천 년이 흘러가면서 이 전통들이 희미하게 되자, 아담-사람의 문화적 차원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차원과, 보라색 인종의 자연적으로 진화하는 문화적 능력과 서로 균형을 이루는 지위까지 퇴보하였다.

78:2.5 (870.3) 그러나 아담-사람들은 기원전 약 19,000년까지 실제적인 국가를 이루었고, 인구는 450만 명에 이르렀으며, 그들은 이미 수백만 명의 자손들을 주변 민족들에게 보낸 상태였다.

제 3 장. 아담-사람들의 초기 확대

78:3.1 (870.4) 보라색 인종은 평화를 수호하는 에덴 전통들을 수천 년 동안 간직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그들은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 그들이

인구에서의 압력에 고통을 겪게 되자, 그들은 영토를 넓히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대신에, 초과되는 숫자의 자기 주민들을 다른 종족들에게 선생으로 파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초기 이주에 의한 문화적 효과가 계속 지속된 것은 아니었지만, 아담-사람의 선생들과 상인들 그리고 탐험가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생물학적으로 활기를 띠게 되었다.

78:3.2 (870.5) 아담-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일찍이 서쪽으로 여행하여 나일 지역에 이르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로 들어갔지만,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후대의 대량 이동은 북쪽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그 후에는 서쪽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대부분이 점차적으로 그러나 꾸준하게 이루어졌는데, 더 많은 숫자가 북쪽으로 이동하였고 그 후에는 서쪽으로 돌아서 카스피 해를 지나 유럽으로 들어갔다.

78:3.3 (870.6) 약 25,000년 전에, 아담-사람들의 많은 순수한 요소들이, 북쪽으로 집단 이주한 자들에게서 잘 유지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북쪽으로 들어갔을 때, 투르케스탄 지역을 차지하게 될 때까지 아담의-요소들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으며, 다른 종족들과 속속들이 섞여 버렸는데, 특별히 낫-사람들과 많이 섞였다. 순수한 혈통의 보라색 민족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만이 유럽과 아시아로 들어갔다.

78:3.4 (870.7) 기원전 약 30,000년으로부터 10,000년에 이르기까지, 신(新)시대를-만드는 종족 혼합이 남서부 아시아 전역에서 발생되었다. 투르케스탄 지역의 고원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씩씩하고 활기찬 민족이었다. 인도의 북서쪽 지역에서 반 시대의 문화가 유지되었다. 이 정착지들로부터 더 북쪽에서는 초기 안돈-사람의 최고 문화가 보존되고 있었다. 그리고 문화와 성격이 우월한 이 두 종족들은 북쪽으로 이동하는 아담-사람들에 의해서 흡수되었다. 이러한 혼합으로 많은 새로운 관념들이 수용되었는데; 그것은 문명의 진보를 촉진시켰고, 예술과 과학 그리고 사회적인 문화의 모든 위상을 크게 진보시켰다.

78:3.5 (871.1) 기원전 약 15,000년경에 초기 아담의-이주가 끝났을 때, 이 세상의 어느 곳보다도 더 많은 아담-사람들이 유럽과 아시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메소포타미아보다도 더 많았다. 유럽의 청색 인종들은 이미 크게 침입을 받은 상태였다. 현재의 러시아와 투르케스탄이라고 불리는 그 땅은, 낫-사람들과, 안돈-사람들, 그리고 적색 그리고 황색 산각들과 섞인 아담-사람들의 거대한 무리들에 의해서 남쪽으로 뺏어나간 사람들로 메워져 있었다. 그리고 남부 유럽과 지중해 주변은, 극소수의 아담-사람 혈통이 섞인 안돈-사람과 산각 민족들—오렌지색, 녹색, 그리고 남색 종족—의 혼혈된 종족이 장악하고 있었다. 소아시아와 중앙-동부 유럽 지역에는 안돈-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부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78:3.6 (871.2) 이 무렵에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도래한 사람들로 인하여 크게 보충된, 피가 섞인 유색(有色) 인종이 이집트를 차지하였고 유프라테스 계곡의 사라져 가는 문화를 이어받을 준비를 갖추었다. 검은 색 민족들은 아프리카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갔으며, 적색 인종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고립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었다.

78:3.7 (871.3) 사하라 문명은 이미 가뭄에 의해서 붕괴되었고, 지중해 분지의 문명은 홍수에 의해서 붕괴되었다. 청색 인종들은 아직도 진보된 문화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었다. 안돈-사람들은 여전히 북극 지방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었다. 녹색과 오렌지색 인종들은 이미 그렇게 멸절된 상태였다. 남색 인종은 아프리카에서 남쪽으로 계속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서서히 그러나 오랫동안 계속되는 인종적 퇴보의 길을 걸었다.

78:3.8 (871.4) 인도에 있는 민족들은 진보되지 않는 문명과 함께 정체 상태에 머물렀고; 황색 인종은 중앙아시아에서 자신의 소유지를 확장하고 있었다; 갈색 인종은 태평양 연안의 섬들 위에서 아직도 자신의 문명을 꽃피우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78:3.9 (871.5) 광범위한 기후 변화와 연관되는, 이러한 종족 분포는, 유란시아 문명의 안드-사람 시대의 시작을 위한 세계적인 무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초기 이주(移住)들은 기원전 25,000년부터 15,000년까지 약 10,000년의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후대(後代) 또는 안드-

사람의 이주는 기원전 15,000년부터 6,000년까지 계속되었다.

78:3.10 (871.6) 아담-사람의 물결이 유라시아를 지나가기까지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운반 도중에 크게 손실되었다. 오직 후대의 안드-사람들만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아무리 먼 지역까지라도 에덴의 문화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속도로 이동하였다.

제 4 장. 안드-사람

78:4.1 (871.7) 안드-사람 종족들은, 순수 혈통의 보라색 인종과 노트-사람 그리고 진화적인 민족들이 1차적으로 혼합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안드-사람들은 현대의 종족들보다 아담의-피가 훨씬 더 많이 섞여 있었던 것을 알아야 한다. 안드-사람이라는 말은 주로 그 인종적 유전성의 8분의 1내지 6분의 1을 보라색 인종으로부터 받은 민족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현대의 유란시아인 들은, 심지어는 북쪽의 백색 인종들마저도, 이보다 훨씬 낮은 비율에 해당되는 아담의 피를 갖고 있다.

78:4.2 (871.8) 가장 초기의 안드-사람 민족들은 25,000년보다 더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기원되었고,

아담-사람과 낫-사람의 혼혈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동산은 자주색 피가 점차 줄어드는 동심원으로 둘러싸였고, 안드-사람 종족의 탄생은 이 인종 용광로 가장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중에, 이주하는 아담-사람들과 낫-사람들이 투르케스탄의 비옥한 지역으로 들어오자, 그들은 곧 우월한 주민들과 혼합되었으며, 그 결과로 생기는 종족 혼합은 북쪽에서 안드-사람 유형으로 확대되었다.

78:4.3 (872.1) 그 안드-사람들은 순수한 혈통의 보라색 민족들 이후로 유란시아에 나타난 혈통들 중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종족이었다. 그들은 아담-사람과 낫-사람 중에서 살아남은 가장 수준 높은 유형들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황색 인종과 청색 인종 그리고 녹색 인종의 가장 우수한 혈통들 중의 일부도 흡수하였다.

78:4.4 (872.2) 이러한 초기의 안드-사람들은 아리아족이 아니었다; 아리아족의 선조였다. 그들은 백색 인종도 아니었고; 백색 인종의 선조였다. 그들은 서방의 민족이 아니었으며 동방의 민족도 아니었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언어를 갖고 혼합된 소위 백색 인종들에게 코카서스

인종이라고 알려져 온 일반화된 동질성을 제공한 것은 바로 안드-사람의 유전자였다.

78:4.5 (872.3) 보라색 인종의 보다 순수한 혈통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아담의-전통을 간직하였는데, 그것은 초기의 인종 이동이 어떻게 하여 평화로운 이주의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아담-사람들이 낫-사람 혈통들과 연합하게 되자, 그 당시에 가장 호전적인 종족이 되었고, 그들의 안드-사람 후손들은, 그 시대와 그 이후로 오랫동안, 유란시아에 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능숙하고 영리한 군사 전문가들이 되었다. 그 때부터 메소포타미아 거주자들에게서는 군인다운 성격이 점점 자라게 되었고 실재적인 정복 활동에 점점 더 동족이 되어갔다.

78:4.6 (872.4) 이 안드-사람들은 모험심이 강하였고, 방랑하는 기질을 가졌다. 산길 또는 안돈-사람 혈통의 증가로 인하여 그들이 안정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후대 자손들은 자기들이 세계를 일주하고 마지막 남은 멀리 떨어진 대륙을 발견할 때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제 5 장. 안드-사람의 이주

78:5.1 (872.5) 20,000년 동안 두 번째 동산의 문화가 지속되었지만, 그것은 기원전 약 15,000년까지 계속적인 퇴보를 체험하였는데, 그 때 셋이라는 사제 계급의 부활과 아모사드라는 영도자관계가 찬란한 시대의 막을 열었다. 후대에 유라시아에 퍼진 문명의 거대한 물결은, 아담-사람들이 안드-사람들의 형태에 주변에 있는 혼합된 낫-사람과 함께 연합하게 됨에 따라, 동산의 위대한 문예부흥의 뒤를 즉시 잇게 되었다.

78:5.2 (872.6) 이 안드-사람들은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 전역에 새로운 발전을 불러 일으켰다.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신경 전역까지 안드-사람 문화가 지배하였고, 유럽을 향한 끊임없는 이주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새로 이주하는 사람들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혼합된 아담의 후손들이 마지막으로 이주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안드-사람들을 메소포타미아 고유의 종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타당하지 못하다. 이 무렵에는 두 번째 동산의 인종들도 너무 피가 섞인 상태여서, 더 이상 아담-사람으로 간주될 수 없었다.

78:5.3 (872.7) 투르케스탄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새로 다가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특히 후대의 말을 탄 안드-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회복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다. 소위 아리아족 고유 언어라고 불리는 것이 투르케스탄의 고원지대에서 형성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지역에 있던 안돈의-방언과 아담아들-사람들의 언어와 혼합되고 나중에는 안드-사람의 언어와 혼합된 것이었다. 현대에 사용하는 많은 언어들은 유럽과 인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윗부분을 정복한 중앙아시아의 이 부족들이 사용하던 초기 언어에서 유래된 것이다. 고대의 이 언어는 소위 아리아어 족이라고 불리는 서방 언어들의 모든 유사점을 제공하였다.

78:5.4 (872.8) 기원전 12,000년경에, 세상에 있는 전체 안드-사람들의 4분의 3이 유럽의 북부와 동부에 살고 있었고, 메소포타미아로부터의 최후의 마지막 이주가 발생되었을 때, 이주하는 이 집단들 중에서 65퍼센트가 유럽으로 들어갔다.

78:5.5 (873.1) 안드-사람들은 유럽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 북부 지역으로도 들어갔으며, 동시에 많은

집단들이 선교사들과 선생들 그리고 상인들로서 땅 끝까지 퍼져갔다. 그들은 사하라의 산악 민족들 중에서 북부 지역에 있는 집단들에게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는, 나일 강의 상류지역 남쪽으로는 선생들과 상인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나중에는 안드-사람과 이집트인들과 섞였고, 아프리카의 동쪽과 서쪽 해안을 따라 적도보다 남쪽으로 내려갔지만, 마다가스카르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78:5.6 (873.2) 이들 안드-사람들은 드라비다인이라 불렸고, 그리고 나중에 인도를 정복한 아리아인 들이었다; 중앙아시아의 그들의 현존은 우랄알타이 어족의 조상을 크게 개선시켰다. 이 종족의 대부분은 신경과 티베트를 지나가는 양쪽 길로 중국에 들어갔고, 후대의 중국 혈통들에게 바람직한 본질특성을 더해 주었다. 때로는 작은 집단들이 일본, 대만, 동인도, 중국 남부로 여행하였고, 매우 적은 집단이 해안선을 따라 남부 중국으로 들어갔다.

78:5.7 (873.3) 이 종족 중에서 132명이 작은 배들에 나누어 타고 일본을 떠나 남아메리카에 결국에는 도착하였으며 안데스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과 결혼하여 후대에 잉카 제국을 통치하는 조상이 되었다. 그들은 쉬운 단계들, 그 항로도중에 발견되는 수많은 섬들 위에 머무르면서 태평양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다. 폴리네시아 군도는 현재보다 숫자가 훨씬 많았고 면적도 훨씬 컸으며, 이 안드-사람 항해자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소수의 집단들과 함께, 여행 도중에 많은 원주민 집단을 생물학적으로 변형시켰다. 안드-사람 종족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현재는 물에 가라앉아 있는 이 땅들 위에서, 번성하는 많은 문명 중심지들이 자라났다. 이스터 섬은 사라진 이 집단들 중 하나의 종교적 행정-관리적 중심지역할을 오랫동안 유지하였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태평양을 항해한 많은 안드-사람들 중에서, 오직 이 132명만이 아메리카 본토에 유일하게 도착하였다.

78:5.8 (873.4) 안드-사람들의 이주와 정복은 마지막 분산이 발생한 기원전 8,000년 내지 6,000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들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쏟아져 나왔을 때, 그들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현저하게 강화시키면서 자기들의 본거지의 생물학적 보존물을 계속하여 고갈시켰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는 각 나라들마다 유머, 예술, 모험,

음악, 그리고 제조 기술을 증진시켰다. 그들은 동물을 길들이는 재주가 있었고 농업 숙련자들이었다. 적어도 한동안은, 그들의 현존이 대개 옛 종족들의 종교적 신념과 도덕적 실천 관행들이 개선되었다. 그리하여 메소포타미아의 문화는 유럽, 인도, 중국,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태평양의 섬들로 조용하게 퍼져나갔던 것이다.

제 6 장. 안드-사람의 마지막 분산

^{78:6.1 (873.5)} 메소포타미아로부터 퍼져 나가는 안드-사람들의 마지막 세 번의 물결들이 기원전 8,000년부터 6,000년 사이에 있었다. 세 차례의 이 문화 대이동 물결은, 동쪽으로는 고지대 부족들의 압력에 의해서 그리고 서쪽으로는 평야지대 주민들의 공격에 의해서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밖으로 강제적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유프라테스 계곡과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향으로 그들의 최종적인 이주를 단행하였다:

^{78:6.2 (873.6)} 65퍼센트가 카스피 해 통로를 따라 유럽으로 들어가 정복하였고 그들과 융합되어 새로 나타난 백색 인종—청색 인종과 초기 안드-사람들의 혼혈—을 형성하였다.

78:6.3 (873.7) 10퍼센트가, 셋 사제 계급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동쪽으로 이동하였고 엘람 고지대를 통과하여 이란 평원과 투르케스탄으로 들어갔다. 대부분의 그들 후손은 그 지역으로부터 북쪽으로 이동하였고 그들의 아리아 동족들과 함께 인도로 몰려 들어갔다.

78:6.4 (874.1) 메소포타미아인들 중에서 10퍼센트가 북쪽으로 여행하여 신경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안드-사람-황색 인종 주민들과 섞였다. 이러한 종족 연합의 결과로 태어난 유능한 자손들 대부분이 나중에 중국으로 들어갔으며, 황색 인종 중에서 북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기여를 하였다.

78:6.5 (874.2) 자유로이 떠난 이 안드-사람들 중에서 10퍼센트가 아라비아 지역을 지나 이집트로 들어갔다.

78:6.6 (874.3) 5퍼센트의 안드-사람들은, 열등한 이웃 부족들과 자유롭게 결혼하는 것을 스스로 금지하면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입구 근처 해변 지역의 매우 우월한 문화를 유지하였으며,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 이

집단은 많은 우월한 낫-사람과 아담-사람 혈통들을 대표하였다.

78:6.7 (874.4) 기원전 6,000년경에 안드-사람들은 거의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서 사라졌다, 그렇지만, 주변의 산각 종족들과 소아시아의 안돈-사람들과 크게 섞인 그들의 후손들은, 그곳에서 훨씬 후대에 북쪽과 동쪽에서 침입한 자들에 대항하여 전투를 벌였다.

78:6.8 (874.5) 두 번째 동산의 문화 시대는, 주변에 있는 열등한 혈통의 사람들이 점점 더 침투해 들어옴으로써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문명은 서쪽으로 이동하여 나일 지역과 지중해의 섬들에 도달하였고, 그곳에서 계속 번성하고 발전하였으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근원지가 퇴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열등한 민족들의 이러한 억제되지 않은 유입은, 나머지의 유능한 혈통의 사람들을 쫓아낸 북방의 야만인들에 의해서 메소포타미아 전역이 나중에 정복당하도록 길을 열어주게 만들었다. 심지어는 후기의 시대에서도, 그 문화를 가진 나머지 사람들은 무식하고 거친 이 침입자들의 현존을 계속 거부하였다.

제 7 장.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78:7.1 (874.6)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특정한 계절에, 자기들이 쌓아 놓은 제방(堤防) 위로 강물이 넘치는 것에 익숙해 있었다; 이러한 주기적 홍수들은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연중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쪽 지방의 지형적 변화로 말미암아 새로운 위험이 메소포타미아 계곡을 위협하게 되었다.

78:7.2 (874.7) 첫 번째 에덴이 물에 잠긴 후 수천 년 동안, 지중해 동쪽 연안 근처의 산들과 메소포타미아의 북서쪽 그리고 북동쪽에 있는 산들이 계속 솟아올랐다. 고원지대의 이러한 상승현상은 기원전 약 5,000년경에 크게 가속화 되었으며, 이것은 북쪽에 있는 산들 위에 점점 더 엄청나게 쌓이는 눈과 함께 전체 유프라테스 계곡에 매해 봄마다 전례가 없었던 홍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봄철의 홍수는 점점 더 심각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 강 주변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동쪽에 있는 고원지대로 이주하도록 만들었다. 거의 1,000년 동안 수많은 도시들이, 이러한 광대한 지역의 대홍수들에 의해서 실천적으로 황폐한 상태로 변하였다.

78:7.3 (874.8)

거의 5,000년이 지난 후에, 포로가 되어 바빌로니아에 있었던 히브리 사제들은 아담에 이르기까지 유대 민족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애썼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들 중의 하나가 그러한 수고를 포기하면서 노아의 홍수 때에 그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홍수로 잠긴 것으로 만들려는 생각이 발생하였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조상을 살아남은 노아의 세 아들들 중의 하나로 연결시키는, 보다 나은 자리에 있게 되었던 것이다.

78:7.4 (875.1)

물이 온 세계를 뒤덮었던 때에 대한 전설들은 하나의 보편적인 것이었다. 많은 종족들이 전 세계적인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때까지도 계속 간직하고 있었다. 노아와 방주(方舟) 그리고 홍수에 대한 성서의 이야기는, 바빌론 포로기 동안에 히브리 사제들이 창안한 것이었다. 생명이 유란시아에 심어진 이후로는 전 세계적인 홍수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지구 표면 전체를 물이 덮었던 유일한 시기는, 육지가 나타나기 전인 시생대(始生代) 동안이었다.

78:7.5 (875.2)

그러나 노아는 실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아람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자였고, 에렉 근처의 강변에 거주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홍수 철이 다가올 때가 되면, 그 강의 계곡을 오르내리면서, 모든 집들을 배 모양이 되도록 나무로 지을 것과, 집안에 있는 동물들을 매일 밤마다 배에 실으라고 외쳤기 때문에, 많은 조롱을 받았다. 그는 매 해마다 강 근처에 정착하고 있는 이웃에게로 가서 아주 오랫동안 홍수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자 하였다. 마침내 연중행사로 발생하는 홍수 철이 시작되었고, 유별나게 심한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져 강물이 크게 불어남으로써 모든 마을들이 휩쓸려 내려갔으며; 오직 노아와 그의 친족들만이 배 위에 지은 집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다.

78:7.6 (875.3)

이 홍수로 인하여 안드-사람의 문명이 완벽하게 붕괴되었다. 이 홍수 기간이 끝나면서, 두 번째 동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오직 남부 지역에서 그리고 수메르인 가운데에서, 그 전에 있었던 영화(榮華)의 자취가 약간 남아 있을 뿐이었다.

78:7.7 (875.4) 가장 오래된 문명인들 중의 하나를 간직한, 이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지역과 북동쪽 그리고 북서쪽 지역에 정착하였다. 그러나 훨씬 더 오래된 달라마시아 시대의 흔적들이 페르시아 만의 물밑에 존재하고 있으며, 첫 번째 동산이 지중해의 동쪽 끝 부분 밑 물속에 가라앉아 있다.

제 8 장. 수메르인들—마지막 안드-사람들

78:8.1 (875.5) 안드-사람의 마지막 분산으로 말미암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문명의 생물학적 중심 세력이 힘을 잃게 되었을 때, 우월한 이 인종 중에서 하나의 작은 소수 집단이 그 강들의 입구 근처에 있는 그들의 고향에 남아 있었다. 이들이 바로 수메르인들이었으며, 기원전 6,000년경에, 그들의 문화는 성격으로는 더욱 배타적으로 낯-사람이었고, 달라마시아의 고대 전통들을 집착하고는 있었지만, 해안 지역의 이들 수메르인들은 메소포타미아에 남은 마지막 안드-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해당하는 무덤에서 발견된 두개골의 유형들로 밝혀지고 있듯이, 메소포타미아의 종족들은 이미 속속들이 피가 섞여 있었다.

78:8.2 (875.6) 수사가 매우 엄청나게 번영한 것은 그 홍수 기간 동안이었다. 비교적 낮은 지대에 있었던 첫 번째의 그 도시가 물에 잠겼기 때문에, 그 당시의 공예 기술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지대에 있었던 두 번째 도시가 낮은 지대의 도시를 대신하여 본부 역할을 하였다. 나중에 이러한 홍수가 줄어들게 되자, 우르가 도기(陶器) 제조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약 7,000년 전에는 우르가 페르시아 만에 위치하였는데, 그 강에 의한 퇴적에 의하여 현재와 같은 경계 지역까지 육지가 확장되었다. 이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이 홍수의 피해를 덜 입은 것은, 그 강들을 잘 통제하고 그 입구가 넓었기 때문이었다.

78:8.3 (875.7)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계곡에서 평화롭게 곡식을 재배하던 사람들은 투르케스탄과 이란 고원에 사는 야만인들의 침입 때문에 오래 전부터 몹시 시달려 왔었다. 그러나 고원지대에 있는 목초지에 점점 더 심한 가뭄이 닥침으로써, 이제 공동으로 유프라테스 계곡의 침공이 발생되었다. 그리고 이 침공은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는데, 이는 둘러싸고 있는 이들 목축업자들과 사냥꾼들이 많은 숫자의 길들여진 말들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말들의 소유로 인하여

남쪽에 있는 그들보다 부유한 이웃에 대하여 엄청난 군사적으로 우위를 가질 수 있었다. 그들은 삼시간에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휩쓸면서, 유럽 전역과 서부 아시아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로 퍼져나간, 마지막 문화적 물결을 앞으로 내몰았다.

78:8.4 (876.1)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한 이 사람들 속에는, 아담아들 혈통 일부를 포함하여, 투르케스탄 북부 지역의 종족들과 섞인 보다 우수한 안드-사람 혈통들 대부분이 들어 있었다. 북쪽으로부터 도래한, 덜 진보되었지만 더욱 강력한 이 부족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잔재를 재빨리 그리고 기꺼이 흡수하였으며, 마침내는 역사 시대가 시작될 즈음에 유프라테스 계곡에 정착한 혼합된 그 민족들로 발전되었다. 그들은 사라져 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많은 상태들을 회복시켰는데, 그 계곡에 있던 부족들의 예술과 수메르인 문화의 대부분을 받아들이었다. 심지어 그들은 세 번째 바벨탑을 건설하고자 꾀하였고, 나중에는 그 이름을 자기들 나라의 이름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78:8.5 (876.2) 말을 탄 이 야만인들이 북동쪽으로부터 침입하여 유프라테스 계곡 전체를 차지하였을 때, 그들은 페르시아 만에 있는 그 강의 입구 근처에 거주하고 있던 나머지 안드-사람들은 정복하지 않았다. 이 수메르인들은 우월한 지성과 훨씬 강력한 무기들 그리고 광대한 체계를 갖춘 군사적 수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방어할 수 있었으며, 그 수로는 저수지들을 서로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관개 시설로도 사용되었다. 그들은 균일한 집단 종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 뭉쳐진 민족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북서쪽에 있는 이웃 나라들이 도시-국가들로 나뉘어 고립된 때보다도 먼 훗날까지 자기들의 종족과 민족적 고결한-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도시 집단들 중에서 어떤 것도 연합된 그 수메르인들을 정복할 수 없었다.

78:8.6 (876.3) 그리고 북쪽으로부터 침입한 그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이 수메르인들을 선생으로 그리고 행정-관리자로 신뢰하고 존중하였다. 그들은 북쪽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서쪽으로는 이집트로부터 동쪽으로는 인도에 이르는 모든 민족들에 의해서 매우 존중을 받았으며

예술과 산업의 선생으로, 상업에 대한 지도자로, 그리고 시민 정부의 통치자로 추대되었다.

78:8.7 (876.4) 초기의 수메르인 연방 체제가 무너진 후에, 후대의 도시-국가들은 셋 자손 사제들의 후예들 중에서 종교를 이탈한 자들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이 사제들이 이웃 도시들을 정복하였을 때에는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였다. 사르곤의 시대 전에 있었던 후대(後代) 도시의 왕들은 신(神)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강력한 연방을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 각각의 도시는 그 도시 자체의 하느님이 다른 모든 하느님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동의 영도자에게 그들 자신이 예속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78:8.8 (876.5) 도시의 사제들에 의해서 주도된 이러한 오랫동안의 연약한 통치 시대는, 키쉬의 사제였던 사르곤에 의해서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을 왕이라고 선언하였고 메소포타미아 전역과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정복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것으로 사제가-통치하고, 사제에게-지배된, 그리고 각 도시마다 그 자체의

하느님과 그 자체의 제례(祭禮) 실천 관행들을 갖는 도시-국가들이 끝이 났다.

78:8.9 (876.6) 이러한 키쉬 연방 체제가 깨어진 후에는, 계곡에 위치한 이 도시들 상호간에 서로 최극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주권은 수메르, 아카드, 키쉬, 에렉, 우르, 그리고 수사 사이에서 여러 번 이동되었다.

78:8.10 (877.1) 기원전 약 2,500년경에, 수메르인들은 북부 지역에 있는 수이트들과 구이트들의 손에 의해서 심각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 홍수를 막는 제방 위에 세워진, 수메르인들의 수도인 라가쉬가 함락되었다. 에렉은 아카드의 몰락 이후에 30년 동안 유지되었다. 함무라비 법전이 완성될 무렵에, 수메르인들은 북쪽에 있는 셈 족 계열에 흡수되었으며, 메소포타미아의 안드-사람들은 역사의 장에서 사라졌다.

78:8.11 (877.2) 기원전 2,500년으로부터 2,000년까지, 대서양으로부터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방랑하는 집단들이 어지럽게 돌아다녔다. 네라이트들은 피가 섞인 안돈-사람과 안드-사람 종족들의 메소포타미아 후손들 중에서

카스피 지역 집단의 최종적인 이주를 형성하였다. 야만인들이 메소포타미아의 몰락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을, 그 뒤에 일어난 기후 변화가 완성시켰다.

78:8.12 (877.3) 이상과 같은 이야기는 아담 시대 이후의 보라색 인종에 관한 것과,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사이에 있었던 그들의 본거지의 숙명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의 고대 문명은, 우월한 민족들이 이주해 나간 것과 열등한 이웃들이 이주해 들어온 것 때문에 마침내 침몰되고 말았다. 그러나 말을 탄 야만인들이 그 계곡을 정복하기 전에, 동산의 대부분의 문화는 이미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으로 퍼졌으며, 그곳에서 발효되어 유란시아의 20세기 문명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78:8.13 (877.4) [네바돈의 천사장에 의해서 제시되었음]

제 79 편 동방에서의 안드-사람 확대

79:0.1 (878.1) 아시아는 인간 종족의 고향이다. 안돈의-과 폰타가 태어난 곳은 이 대륙의 남부에 있는 어느 반도(半島)였으며; 현재는 아프가니스탄이 된 고원지대에서, 그들의 후손인 바도난이 원시적인 문화 중심지를 세웠고 50만년 이상 동안 유지되었다. 인간

종족의 이 동부 중심지에서, 안돈의-혈통으로부터 산각 민족들이 갈라져 나왔고, 아시아는 그들의 최초의 고향이자 최초의 사냥터였고 최초의 전쟁터였다. 남서부 아시아는 달라마시아인, 낫-사람, 아담-사람, 그리고 안드-사람들로 이어진 문명들을 목격하였고, 이 지역으로부터 강력한 현대 문명이 세계로 퍼져 나갔다.

제 1 장. 투르케스탄의 안드-사람

79:1.1 (878.2) 거의 기원전 2,000년경에 이르기까지, 25,000년 이상 동안, 유라시아의 중심부에는 점점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안드-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투르케스탄의 저지대에서 안드-사람들은 서쪽으로 향하여 내륙 호수들을 돌아 유럽으로 들어갔고, 반면에 이 지역의 고지대에서는 동쪽으로 이동해 갔다. 투르케스탄의 동쪽(신경)은 고대의 통로 역할을 하였고, 그보다 미약하기는 하였지만 티베트 역시 그러한 통로였는데, 그곳들을 통하여 메소포타미아의 이 민족들이 많은 산을 넘어서 황색 인종들이 사는 북부 지역으로 들어갔다. 안드-사람의 인도 침투는 투르케스탄 고지대에서 유래되어 편잡 지방으로 들어갔고 이란의 목초지역으로부터 바루키스탄을 통과하여 들어갔다. 이러한 비교적 초기의

이주들은 결코 정복이라 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것들은 안드-사람이 서부 인도와 중국으로 스며들어간 것이었다.

79:1.2 (878.3) 거의 15,000년 동안, 혼합된 안드-사람 문명 중심지들이 신경에 있는 다림 강 분지와 티베트의 고원지대 남부에 유지되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안드-사람들과 안돈-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어울려 살았다. 다림 계곡은 변질되지 않은 안드-사람 문화의 동쪽 끝에 있는 전초기지였다. 이곳에서 그들은 정착지를 형성하였고 동쪽으로는 진보적인 중국인들과 그리고 북쪽으로는 안돈-사람들과 거래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그 당시에, 다림 지역은 비옥한 땅이었다; 강우량이 풍부하였다. 동쪽으로 고비 지역은 넓게 펼쳐진 목초지였으며 목축업이 점차적으로 농업으로 바뀌고 있었다. 비바람이 남동쪽으로 바뀌게 되자 이 지역의 문명이 쇠퇴되었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는 메소포타미아 자체와 쌍벽을 이루고 있었다.

79:1.3 (878.4) 기원전 8,000년경에, 중앙아시아의 고지대가 점점 더 건조해짐으로써 안드-사람들은 강변과 해변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점점 더 심해지는 이러한 건조

현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일, 유프라테스, 인더스, 그리고 황하의 계곡들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안드-사람 문명에 새로운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새로운 등급인 상인(商人)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많은 숫자를 이루었다.

79:1.4 (879.1) 이주하는 안드-사람들이 기후 조건 때문에 사냥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옛날의 종족들이 목축업자가 됨으로써 진화해 갔던 과정을 답습하지 않았다. 상업과 도시 생활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집트로부터 메소포타미아와 투르케스탄을 거쳐 중국과 인도의 강들에 이르는, 더욱 높게 문명화된 부족들이 도시에서 합류하기 시작하였고 생산과 무역에 종사하게 되었다. 안도니아는 중앙아시아의 상업 중심지가 되었는데, 현재의 아쉬카바드라고 하는 도시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다. 돌과 금속 그리고 나무와 도기(陶器)의 교역이 육지와 해상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79:1.5 (879.2) 그러나 계속 심화되는 건조 현상은 안드-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역으로부터 카스피 해 남부와 동부로 대이동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주의 물결이 북쪽 방향에서

남쪽 방향으로 바뀌었고, 말을 탄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79:1.6 (879.3) 중앙아시아의 점점 더 심해지는 건조 상태는 인구를 더욱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였고 이 사람들의 호전성을 줄여주었다; 북쪽 지역의 강우량이 줄어들어 말미암아 유목하던 안돈-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안드-사람들이 투르케스탄으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이것이 소위 아리아인들이 레반트와 인도 지역으로 들어간 마지막 이동이다.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아담의 혼합된 후손들의 분산이 절정에 달하였으며, 그 동안에 아시아의 모든 민족들과 태평양에 있는 섬들의 대부분의 민족들이 우월한 이 종족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79:1.7 (879.4) 그리하여, 안드-사람들이 지구의 동반구에 널리 분산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와 투르케스탄에 있는 그들의 본거지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이는 안돈-사람들의 이와 같은 광범위한 남쪽으로의 이동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안드-사람들이

희귀해져서 거의 사라지는 지경에 도달하였기 때문이었다.

79:1.8 (879.5) 그러나 그리스도 이후 20세기까지도, 우랄알타이 어족(語族)의 민족들과 티베트 민족들 속에는 안드-사람 혈통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이 지역에서 때때로 발견되는 금발 유형의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 된다. 초기 중국 사료들은 황하 유역의 평화로운 정착지 북쪽 지역에서 붉은 색 머리를 가진 유목민들의 현존이 있었다고 기록하였으며, 옛날에 다림 분지에 금발의 안드-사람과 갈색 머리의 몽고족들의 현존이 같이 있었음을 정확하게 기록한 그림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79:1.9 (879.6) 중앙아시아 안드-사람들의 숨겨진 군사적 재능의 마지막 큰 현시활동은, 서기 1,200년에 징기스칸이 지배하는 몽고가 아시아 대륙의 거의 대부분을 점령하였을 때였다. 그리고 옛날의 안드-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전사들은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하느님”의 실존을 전파하였다. 그들의 제국이 일찍 무너짐으로써, 동방과 서방 간의 문화 교류가 오랫동안

연기되었으며, 아시아에서의 유일신(唯一神) 개념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게 되었다.

제 2 장. 안드-사람의 인도 정복

79:2.1 (879.7) 인도는 유란시아의 모든 인종들이 섞인 유일한 지역이며, 안드-사람의 침입은 마지막으로 덧붙여진 혈통을 제공하였다. 인도의 북서쪽 고지대에서 산각 종족들이 출현하였으며, 초기에 인도 대륙에 들어온 각 종족의 사람들이 예외 없이 섞임으로써, 유란시아에 이제까지 존재하였던 종족들 중에서 가장 잡다한 종족을 남겨두었다. 고대의 인도는 이주하는 인종들을 붙잡아두는 웅덩이 역할을 하였다. 그 반도의 출발 지점은, 이전에는 현재보다 약간 좁았으며, 갠지스와 인더스의 삼각주는 지난 50,000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79:2.2 (879.8) 인도에서 있었던 최초의 인종 혼합은, 이주하는 적색 인종과 황색 인종이 토착민인 안돈-사람들과 섞인 것이었다. 이 집단은 소멸된 동부의 녹색 인종들의 대부분과 많은 숫자의 오렌지색 종족을 흡수함으로써 나중에 약화되었고, 청색 인종과 약간 혼합됨으로써 약하게나마 진보를 이루었지만, 많은 숫자의 남색 종족과

혼합됨으로써 크게 수난을 당하였다. 그러나 소위 인도의 원주민이 이러한 초기 민족을 대표한다고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들은 오히려 남부와 동부 지역에 사는 가장 열등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지역은 초기의 안드-사람들이나 또는 후대에 나타난 그들의 아리아 동족들에 의해서 한 번도 충만하게 흡수되지 못한 곳이었다.

79:2.3 (880.1) 기원 전 20,000년경에, 서부 인도의 사람들은 이미 아담의-피와 혼혈되기 시작하였으며, 유란시아의 역사상 한 민족이 그토록 많은 다른 종족들의 병합으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2차 산격 혈통들이 우위를 차지한 것은 불행한 일이었고, 오래 전의 이 인종(人種) 용광로로부터 청색 인종과 적색 인종이 너무 많이 사라진 것은 실제적인 하나의 재난이었는데; 1차 산격 혈통들이 더 많았다면 훨씬 훌륭한 문명이 발생되도록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매우 많이 기여하였을 것이다. 그것이 발달하면서, 적색 인종은 아메리카에서 자멸하였고, 청색 인종은 유럽에서 활동하였으며, 아담의 초기 후손들(그리고 후대의 후손들 대부분)은 인도와 아프리카 그리고 다른 어느 지역에서든지 짙은 색깔의 인종들과는 어울리기를 싫어하였다.

79:2.4 (880.2) 기원 전 약 15,000년경에, 늘어나는 인구에 의한 압력이 투르케스탄 전역으로 확장되었고 이란으로부터 실제로 최초의 안드-사람 이동이 인도 쪽으로 일어났다. 15세기가 넘는 동안, 우월한 이 민족들이 바루키스탄 고지대를 통하여 쏟아져 들어왔고, 인더스와 갠지스 계곡으로 퍼져나갔으며 서서히 남쪽으로 이동하여 데칸 지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북서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안드-사람 압력은, 남부와 동부에 있던 열등한 사람들을 쫓아내 버마와 남부 중국으로 들어가게 했지만, 침입자들은 종족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다.

79:2.5 (880.3) 인도가 유라시아의 패권을 잡지 못한 것은 주로 지형적인 문제 때문이었는데, 북쪽에만 붐비고 있던 인구 압력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동하여 데칸 지역으로 들어가 영토는 더욱 줄어들었고, 삼면(三面)이 바다로 둘러싸이게 되었다. 만일 그 부근에 이주해 들어갈 만한 땅이 있었다면, 열등한 민족은 사방으로 흩어졌을 것이고, 우월한 혈통을 가진 그 사람들이 훨씬 발전된 문명을 성취하였을 것이다.

79:2.6 (880.4) 사실 그대로, 초기의 이 안드-사람 정복자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리고 종족간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시키는 규율을 제정함으로써 종족 흡수의 물결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사적인 시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사람들은 기원 전 10,000년경에 사라졌지만, 전체의 민족은 이들이 흡수됨으로써 괄목할만한 증진을 이룩하였다.

79:2.7 (880.5) 종족 혼합은, 문화에 다양성을 제공하고 진보적인 문명을 이룩한다는 점에서 항상 유리한 것이지만, 만약에 열등한 요소를 가진 종족이 우세할 경우에는, 그러한 성취가 오래가지 못한다.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는, 열등한 사람들과의 안전한 간격 안에서, 우월한 혈통이 재생산하여야만 오로지 유지될 수 있다. 우월한 자들의 재생산이 줄어들면서, 열등한 자들이 제약 없이 번식하면, 문화적인 문명은 반드시 자멸하게 된다.

79:2.8 (880.6) 안드-사람 정복자들이 그 당시 그들의 숫자보다 3배가 되었다면, 또는 그들이 혼합된 오렌지색-녹색-남색 주민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3분의 1을 쫓아내었거나 파멸시켰더라면, 인도는 문화적 문명의

세계적인 중심지들 중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며, 투르케스탄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곳으로부터 유럽으로 건너간 메소포타미아인들의 후반기 무리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었을 것이다.

제 3 장. 드라비다의 인도

79:3.1 (881.1) 인도를 정복한 안드-사람과 원주민 혈통의 결합은 결국에는 드라비다인이라 불린 혼합된 민족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 보다 초기의 그리고 보다 순수한 드라비다인들은 문화적 성취를 위한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안드-사람 유전자가 점점 더 희박해짐에 따라 계속 약화(弱化)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거의 12,000년 전에 인도 문명을 싹트게 하였다. 그러나 아담의 피가 이렇게 적은 양만이 주입되었지만, 사회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괄목할만한 축진을 가져왔다. 이렇게 혼합된 혈통은 그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문명을 즉각적으로 꽃피웠다.

79:3.2 (881.2) 인도가 정복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드라비다의 안드-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와의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접촉이 끊어졌지만, 나중에 개통된 해안 도로와 카라반

행로가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고, 산악지대 때문에 서쪽과의 교통이 훨씬 활발하기는 하였지만, 지난 10,000년 동안 서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와 그리고 동쪽으로는 중국과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단절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79:3.3 (881.3) 인도에 있는 민족들의 우월한 문화적 종교적 성향들은 드라비다인이 지배한 초기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 안드-사람 침입과 후대의 아리아인 침입의 두 차례에 걸쳐, 수많은 셋 족속 사제들이 인도에 들어왔다는 사실에도 부분적으로 기인된다. 인도의 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던 유일신 론의 가느다란 빛은 두 번째 동산의 아담-사람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렇게 유래되었다.

79:3.4 (881.4) 이미 기원 전 16,000년경에 100명에 이르는 셋 자손 사제 무리가 인도에 들어왔으며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그 민족의 절반에 해당하는 서쪽 지역에 대한 종교적 정복을 거의 이룩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는 계속 유지되지 않았다. 5,000년이 지나기 전에,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관한 그들의 교리들은 화신(火神)에 대한 삼원적 상징으로
퇴화되었다.

79:3.5 (881.6) 안드-사람 이주가 끝나기까지, 7,000년 이상 동안,
인도에 사는 주민들의 종교적 지위는 세계 대부분의
상태보다 훨씬 높았다. 이 기간 동안, 인도는 지도적인
세계의 문화적, 종교적, 철학적, 상업적 문명을 산출할
가능성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민족들에 의한
안드-사람들의 완벽한 침몰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운명은
아마도 실현되었을 것이다.

79:3.6 (881.6) 드라비다의 문화적 중심지들은 강이 있는
계곡들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대개 인더스와 갠지스
지역이었으며, 데칸에서는 3개의 큰 강물이 동부 가트
지역을 흘러서 바다로 들어갔다. 서부 가트의 해변을 따라
형성된 정착지들은 수메르와 해상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었다.

79:3.7 (881.7) 드라비다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육상과
해상의 광대한 수출입 업무에 종사한 최초의 민족들에
속하였다. 기원 전 7,000년경에는 낙타 행렬이
메소포타미아의 먼 지역까지 정기적으로 여행하였다;

드라비다의 선박은 해안을 따라 활동하였는데, 아라비아 해를 지나 페르시아 만에 있는 수메르의 도시들까지 이르렀으며, 해상에서 모험을 감행하여 벵갈 만(灣)을 지나 동인도 제도(諸島)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해상 여행자들과 상인들에 의해서, 알파벳과 글 쓰는 기술이 수메르에서 수입되었다.

79:3.8 (881.8) 이러한 상업적인 관계들은 세계적인 문화를 더욱 다양화 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도시 생활의 많은 진보와 심지어는 사치품들이 일찍부터 출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중에 나타난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안드-사람 동족들이 산각 종족 속으로 스며들었던 것을 드라비다 사람들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잘 발달된 문명은 발견할 수 있었다. 생물학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드라비다 사람들은 우월한 문명을 건설하였다. 그것은 인도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데칸 지역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어 왔다.

제 4 장. 아리아족의 인도 침입

79:4.1 (882.1) 안드-사람의 두 번째 인도 침투는, 그리스도 이전(以前) 2,500년 부근의 거의 500년 기간 동안에 일어난 아리아인 침입이었다. 이 이주(移住)는 안드-사람들의 고향인 투르케스탄으로부터 마지막 탈출을 이룩하였다.

79:4.2 (882.2) 초기의 아리아인 중심지들은 인도의 북쪽 지역 절반 부분에 산재해 있었는데, 특별히 북서부에 많았다. 이 침입자들은 그 나라를 완벽하게 정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나중에 히말라야 지방을 제외한 전체의 반도를 휩쓸게 되었던 남부의 드라비다 사람들에 의해서 흡수될 정도로 그들의 숫자가 미약하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러한 무관심속에서 파멸을 맞이하게 되었다.

79:4.3 (882.3) 아리아인들은 북쪽 지방을 제외하고는 인도에서 인종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였다. 데칸에서의 그들의 영향은 인종적인 것보다는 문화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었다. 북부 인도의 소위 아리아인 혈통이라 불리는 아주 강한 인내심은, 이 지역에서 그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던 현존에 기인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후대의 정복자들과 상인들 그리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보강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스도 이전 100년경에 이르기까지,

아리아인 혈통의 계속적인 침투가 편잡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마지막 유입은 헬라 민족들의 출정에 부수적으로 따라왔다.

79:4.4 (882.4) 갠지스 평원에서 아리아인과 드라비다인이 결국에는 혼합되어서 하나의 높은 문화를 창출하였으며, 이 중심지는 나중에 중국으로부터 온 북동쪽으로부터의 기여에 의해서 보강되었다.

79:4.5 (882.5) 인도에서는, 아리아인들의 반(半)민주주의 체제로부터 전제적이고 군주적인 정부 형태에 이르는, 여러 유형의 사회 조직들이 때때로 번성하였다. 그러나 가장 독특한 사회적 특징은, 종족의 정체성을 영존시키고자하는 노력으로 아리아인들에 의해 설립된 위대한 사회적 특권계급을 끈질기게 고수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교한 특권계급 체계는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다.

79:4.6 (882.6) 네 개의 위대한 특권계급들 중에서,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는 아리아인 정복자들이 자신들보다 열등한 백성들과 인종적으로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한 하찮은 노력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그러나 첫 번째 특권계급인 선생-사제 계급은 셋-사람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그리스도 이후 20세기의 브라만 계급은, 비록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저명한 조상들의 것과 크게 다르기는 하지만, 두 번째 동산의 사제들의 문화적 직계 후손들이다.

79:4.7 (882.7)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두 번째 동산에 있었던 종교의 남아있는 전통들을 보존해 왔던 그대로 신(神)에 대한 자기들의 개념들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브라만 사제들은, 아리아인들의 멸종 이후에 데칸의 열등한 종교와 갑작스럽게 접촉함으로써 세워진 다신교적(多神敎的) 타성을 전혀 이겨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등한 종교들의 노예화시키는 미신들의 굴레에 속박되고 말았다; 그것으로 인하여 인도는 초기 시대에 징조를 보여 왔던 고차원의 문명을 창출하는 데 실패하였다.

79:4.8 (882.8) 그리스도 이전 6세기의 영적 각성이 인도에서는 유지되지 못하였으며, 이슬람교 침투 전에 이미 소멸되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더 위대한 고타마가 나타나 모든 인도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 계신 하느님을 찾도록 인도할 것이며, 그 때가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은 보수적인

영적 통찰력의 무감각한 영향력 밑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혼수상태에 있었던 다재다능한 한 민족의 문화적
잠재성에 대한 결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79:4.9 (883.1) 문화는 생물학적인 기초 위에서 존재하지만,
특권계급만으로는 아리아인 문화를 영속시킬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종교, 참된 종교는 인간 형제신분에
기초를 둔 우월한 문명을 설립하도록 사람들을 내모는
높은 에너지의 필요 불가결한 근원이기 때문이다.

제 5 장. 적색 인종과 황색 인종

79:5.1 (883.2) 인도에 관한 이야기가 안드-사람의 정복에 관한
것과 결국에는 보다 오래된 진화적 민족들 속으로
스며들어간 것에 관계되는 반면, 동부 아시아에 관한
이야기는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첫 번째 산각들 특히
적색 인종과 황색 인종과 관계된다. 이 두 종족들은 청색
인종이 유럽에서 크게 발달이 뒤떨어진 저질(低質)의
네안데르탈 혈통과의 혼합을 대부분 겪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첫 번째 산각 유형의 우월한 잠재를 간직하고
있었다.

79:5.2 (883.3) 초기의 네안데르탈인들이 유라시아 전체에 퍼진 반면, 동쪽 부분은 저질의 동물적 혈통들에 의해 더 많이 오염되었다. 이러한 유인원 유형의 사람들은 다섯 번째 빙하기에 남쪽으로 밀려 내려갔는데, 바로 그 빙하가 동부 아시아로 나아가는 산길 이주를 가록 막았다. 그리고 적색 인종이 인도의 고원지대를 돌아 북동쪽으로 이동하였을 때, 그들은 북동쪽 아시아에 유인원 유형의 사람들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백색 인종들의 부족 체제는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먼저 형성되었으며, 산길들의 중앙아시아 중심지로부터 이주한 최초의 인종이었다. 열등한 네안데르탈 혈통들은, 나중에 이주하는 황색 인종에 의해서 파멸되거나 아니면 본토로부터 쫓겨났다. 그러나 적색 인종은, 황색 인종의 부족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거의 100,000년 동안 동부 아시아를 차지하고 있었다.

79:5.3 (883.4) 300,000년 전에 황색 인종의 본대가 남쪽으로부터 해안을 따라 이주하여 중국으로 들어갔다. 매 1,000년마다 그들은 점점 더 깊숙이 내륙으로 들어갔지만, 티베트로 이주한 동족들과는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까지 마주치지 않았다.

79:5.4 (883.5) 인구 압력이 증가됨으로서 황색인종을 북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였고 적색 인종의 사냥터로
밀려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침해는 선천적인
종족간의 반목과 함께 호전성을 증가시켜 절정에 이르게
하였고, 그리하여 아시아의 더 먼 곳에 있는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혹독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79:5.5 (883.6) 적색 인종과 황색 인종 사이에 있었던 오랜 세월
동안의 이 이야기는 유란시아 역사에서 하나의
서사시와도 같다. 20만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들 두 우월한
인종들은 더욱 격심하고 끊임없는 전쟁을 벌였다. 초기의
투쟁에서는 대체적으로 적색 인종이 우세하여, 습격을
담당하는 그들의 무리들은 황색 인종의 정착지를
황폐화시키는 위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황색 인종은
전쟁의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매우 기민하였으며,
동포들과 평화롭게 사는 상당한 능력을 일찍부터
현시되어 있었는데, 연합 안에 힘이 있음을 처음으로 배운
것은 중국인들이었다. 적색 부족들은 내부적인 투쟁을
계속하였으며, 이윽고 그들은 북쪽을 향한 자신들의
진군을 가차 없이 계속한 냉혹한 중국인들의 적극적인
손길에서 반복되는 패배로 고통을 맛보기 시작했다.

79:5.6 (883.7)

10만 년 전에, 격감된 적색 인종은, 뒤로는 마지막 빙하기의 퇴각하는 얼음 덩어리와 싸워야 했으며, 베링 해협을 지나 육로를 통하여 동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이 부족들은 야박스러운 아시아 대륙 해안을 서슴없이 떠나게 되었다. 순수한 적색 인종이 마지막으로 아시아를 떠난 지 85,000년이 지났지만, 오랜 기간의 투쟁은 승리를 거둔 황색 인종에게 유전적인 흔적을 남겨 두었다. 안돈-사람인 시베리아인 들과 함께, 북부 지역의 중국 민족들은 적색 종족을 많이 닮았으며 그것에 의해서 상당한 정도의 유익을 얻었다.

79:5.7 (884.1)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아담과 이브의 안드-사람 후손과도 전혀 접촉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아담의 도래보다 약 50,000년 전에 그들의 고향이었던 아시아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이었다. 안드-사람의 이주 기간 동안, 순수한 적색 혈통의 사람들이 방랑하는 부족, 농사를 약간 실천한 사냥꾼이 되면서 북아메리카 전역에 퍼졌다. 이 종족들과 문화 집단들은, 그리스도교 시대의 첫 1,000년이 끝날 무렵, 유럽의 백색 인종들에 의해 그들이 발견될 때까지, 아메리카에 도착한 이래 세계의 다른 민족들과 거의 완벽하게 고립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

때까지, 북쪽에 있는 적색 인종 부족들이 보았던 사람들 중에서 에스키모들이 백색 인종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79:5.8 (884.2) 적색 인종과 황색 인종은, 안드-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가장 발달된 문명을 이룩한 유일한 인간 혈통이었다. 최고로 오래된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나모나론톤이었지만, 이것은 오래 전인 기원 전 35,000년경에 사라졌다. 중앙아메리카인 멕시코와 남아메리카의 산악지대에서는, 보다 후대의 그리고 보다 오래 지속된 문명들이, 주로 적색 인종이지만 황색과 오렌지색 그리고 청색 인종이 상당히 섞여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건설되었다.

79:5.9 (884.3) 안드-사람 혈통의 흔적이 페루에서도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 문명들은 산각 종족들의 진화적인 산물이었다. 북아메리카의 에스키모와 남아메리카에 있는 소수의 폴리네시아 안드-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서반구(西半球)의 민족들은 그리스도 이후 첫 1,000년이 끝날 무렵까지 세계의 다른 인종들과 접촉하지 않았다. 유란시아 종족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멜기세덱의 기원적

계획에서는, 아담의 순수 혈통을 가진 백만 명의 후손들이
아메리카의 적색 인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나아가게
되어 있었다.

제 6 장. 중국 문명의 여명

79:6.1 (884.4) 적색 인종이 북아메리카로 쫓겨난 지 얼마 후에,
확대되는 중국인들은 동부 아시아의 강 유역들로부터
안돈-사람들을 몰아내었는데, 북쪽으로는 시베리아로
그리고 서쪽으로는 투르케스탄으로 밀어내었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곧 안드-사람들의 우월한 문화와
접촉하게 되었다.

79:6.2 (884.5) 버마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는, 인도와 중국의
문화들이 혼합되고 섞여져서 그 지역에 계속적인 문명을
창출하게 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라진 녹색 인종이 세계의
다른 어떤 장소보다도 더 많은 비율로 남아 있었다.

79:6.3 (884.6) 많은 다른 종족들이 태평양의 섬들을 점령하였다.
일반적으로, 남쪽의 섬들이 그 다음에는 광범위한 지역의
섬들이, 높은 비율의 녹색과 남색 혈통을 간직한 민족들에
의해서 점령되었다. 북쪽의 섬들은 안돈-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되었으며, 나중에는 높은 비율의 황색 혈통과 적색

혈통을 포함하는 종족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일본 민족의 조상들은 기원 전 12,000년까지 본토에서 쫓겨나지 않고 있다가, 그 때 그들은 북쪽에 있는 중국 부족들이 남쪽 해안을 따라 강력하게 밀려 내려옴으로써 쫓겨나게 되었다. 그들의 최종적인 탈출은 인구 압력에 기인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신성한 인물로 간주하게 된 족장의 주도권에 기인된 것이었다.

79:6.4 (885.1) 인도와 레반트의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황색 인종의 다양한 부족들은 해안선과 강줄기를 따라서 초기의 중심지들을 건설하였다. 연안에 있는 주거지들은 나중에 홍수가 증가하면서 살아가기 힘들게 되었고, 강줄기의 변경은 낮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지탱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79:6.5 (885.2) 20,000년 전에, 중국인들의 조상들은 12개에 달하는 원시적인 문화와 교육의 강력한 중심지들을 건설하였었는데, 특별히 황하와 양쯔 강을 따라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 때 이 중심지들은 신경과 티베트에서 꾸준히 밀려들어오는 피가 섞인 우월한 민족들이 도착됨으로 인하여 보강되기 시작하였다.

티베트로부터 양쯔 강 계곡으로의 이주는 북쪽에서 일어난 것처럼 광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티베트의 중심지들도 다림 분지의 중심지들만큼 발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두 이동 물결은 상당한 양의 안드-사람 피를 동쪽으로 강 정착지에 옮겨주었다.

79:6.6 (885.3) 고대 황색 인종의 우월성은 네 가지 큰 요소들로부터 기인되었다:

79:6.7 (885.4) 1. 유전적 요인. 유럽에 있는 그들의 청색 사촌들과는 달리, 적색 종족과 황색 종족 모두는 저하된 인간 핏줄과 혼합되는 것을 대체적으로 피해왔다. 우월한 적색 혈통과 안돈의-혈통이 약간 섞인 북부의 중국인들은, 안드-사람 혈통이 상당히 유입됨으로써 곧 유익을 얻게 되었다. 남부의 중국인들은 이러한 면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녹색 인종의 흡수로 인하여 오랫동안 수난을 당하였고, 반면에 나중에는 드라비다-안드-사람 침입으로 말미암아 인도에서 도망 나온 열등한 민족들 무리가 침투함으로써 훨씬 약화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중국에는 북부 지역의 인종과 남부 지역의 인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79:6.8 (885.5)

2. 사회적 요인. 황색 인종은 자기들끼리의 평화에 대한 가치를 일찍부터 습득하였다. 그들의 내부적인 평화 유지 능력은 인구 증가에 막대하게 기여하였으며 그들의 문명이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퍼지도록 만들었다. 기원 전 25,000년부터 5,000년에 이르기까지, 유란시아에서 가장 높은 집단적 문명은 중국의 중앙과 북부 지역에 있었다. 황색 인종은 종족의 결속을 이룩한 최초의 종족이었다.—큰 규모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문명을 처음으로 달성하였다.

79:6.9 (885.6)

기원 전 15,000년의 중국인은 공격적인 군국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과거를 지나치게 존경함으로써 약화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고, 인구수가 1,200만 명 미만이었으며, 간단한 신체적 표현으로 공통 언어를 사용하는 알찬 집단을 형성하였다. 이 시기 동안에, 그들은 실제적인 국가를 형성하였는데, 역사 시대에 이룩한 그들의 정치적 연합보다도 훨씬 더 연합되었고 균질성을 갖고 있었다.

79:6.10 (885.7)

3. 영적 요인. 안드-사람이 이주하던 시기 동안, 중국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비교적 더 영적인 민족들 중의

하나였다. 싱랑톤이 전한 하나의 진리에 대한 경배에 오랫동안 집착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종족들보다 가장 우위를 지킬 수 있었다. 진보적이고 발전된 종교에 의한 자극이 때로는 문화적 발전에 중대한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인도가 쇠약해졌을 때, 중국은 진리를 최극 신(神)으로 모시는 한 종교의 활기찬 자극 밑에서 서서히 앞으로 나갔던 것이다.

79:6.11 (885.8) 이러한 진리 경배는 자연 법칙과 인류의 잠재에 대한 연구와 대담한 탐구를 유도하였다. 6,000년 전까지도 중국인들은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여전히 예민한 학생들이었고 적극성을 띠고 있었다.

79:6.12 (885.9) 4. 지형적 요인. 중국은 서쪽으로는 산들에 의해서 그리고 동쪽으로는 태평양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다. 오직 북쪽으로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으며, 적색 인종의 시대부터 후대의 안드-사람 자손들이 도래할 때까지, 북쪽 지역은 어떤 공격적인 종족에 의해서도 점령되지 않았었다.

79:6.13 (886.1) 또한 산에 의한 장벽이 없었다면, 그리고 영적 문화에 있어서 후대의 퇴보가 없었다면, 황색 인종은

투르케스탄으로부터 이주하는 안드-사람의 대부분을 이끌어 들일 수 있었음이 분명하며, 그렇게 되었다면 틀림없이 세계 문명을 재빨리 지배하였을 것이다.

제 7 장. 중국에 들어온 안드-사람

79:7.1 (886.2) 약 15,000년 전에, 상당한 숫자의 안드-사람들이 티타오 고개를 넘었고 칸수에 있는 중국인 정착지들 중에서 황하 상류 계곡으로 퍼져 나갔다. 이윽고 그들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호난에 이르렀으며, 그곳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착지들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서쪽으로부터 침투한 사람들은 반(半)은 안돈-사람이고 나머지 반은 안드-사람이었다.

79:7.2 (886.3) 황하 유역을 따라 이루어진 북쪽의 문화 중심지들은, 양쯔 강 유역의 남쪽 정착지들보다 항상 더 진보를 이룩하였다. 소수의 무리이기는 하였지만 우월한 이 필사자들이 도착된 후 수천 년 내에, 황하 유역의 정착지들은 양쯔 강 유역의 마을들보다 앞서 나갔고, 그 후에 유지되었던 모든 남부에 있는 그들의 동족들보다 우위를 차지하였다.

79:7.3 (886.4) 그것은 그곳에 훨씬 더 많은 안드-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고, 그들의 문화가 훨씬 우월하였기 때문도 아니었으며, 오직 그들과의 혼합으로 더욱 다재다능한 혈통이 조성되었기 때문이었다. 북부의 중국인들은 그들의 선천적인 유능한 마음들을 약간 자극하기에 겨우 충분할 만큼 안드-사람 혈통을 받아들였지만, 북부에 있는 백색 인종들의 특징처럼 끊임없이 탐구심을 갖는 호기심이 불타오를 정도로 충분하게 받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안드-사람 유전의 더욱 제한적인 주입은 산각 유형의 타고난 안정성을 적게 교란시키고 있었다.

79:7.4 (886.5) 후대에 이동한 안드-사람은 향상된 특정한 메소포타미아의 문화를 가져왔으며; 이것은 특별히 서쪽으로부터 이동한 마지막 물결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그들은 북부 중국인들의 경제적 교육적 실천 관행들을 크게 증진시켰으며; 반면에 황색 인종의 종교적 문화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은 오래 가지 못하였고, 그들의 먼 후손들이 나중에 일어난 영적 각성에 많이 기여하였다. 그러나 에덴과 달라마시아의 아름다움에 대한 안드-사람 전승들이 중국의 전승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초기 중국의

전설들은 “하느님들의 땅”이 서쪽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79:7.5 (886.6) 중국 민족은 기원 전 10,000년이 지날 때까지, 투르케스탄에 기후 변화가 발생하고 후대의 안드-사람들이 도착한 후까지,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였고 제조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이 새로운 혈통의 주입은, 황색 인종의 문명에 기여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우월한 중국 혈통의 잠재적인 경향이 더 깊이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도록 자극을 주었다. 호난에서 센시에 이르기까지, 진보된 문명의 잠재가 결실을 맺게 되었다. 금속 가공과 모든 제조 기술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79:7.6 (886.7) 시간 계산과 천문학 그리고 정부 관리-행정에 대한 중국의 방법과 메소포타미아의 방법 일부가 비슷한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두 중심지들 사이의 상업적 관계로부터 기인되었다. 중국의 상인들은 수메르인 시대에 이미 육로를 통하여 투르케스탄을 거쳐 메소포타미아로 여행하였다. 이러한 교환은 일방적인 것도 아니었다.—유프라테스 계곡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었고, 갠지스 평원의 민족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기후 변화와 그리스도 이전 3,000년경의 유목민 침입으로 말미암아, 중앙아시아의 카라반 길을 지나가는 무역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제 8 장. 후대의 중국 문명

79:8.1 (887.1) 적색 인종이 너무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시달린 반면, 중국인들 속에서의 국가적인 상태의 발전은 그들이 아시아를 속속들이 정복할 때까지 연기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종족의 결속을 이룩할 수 있는 많은 잠재를 갖고 있었지만, 외적인 공격에 항상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응되는 계속적인 강렬한 충동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적절하게 발전되지 못하고 말았다.

79:8.2 (887.2) 동부 아시아 정복의 완료와 함께, 고대의 군사적 체제가 서서히 집대성이-해체되었다—과거의 전쟁들은 잊혀졌다. 적색 인종과 투쟁하였던 이야기들 중에서, 활 쏘는 민족들과의 오래 전의 투쟁에 대한 희미한 전승만이 남아 있었다. 중국인들은 일찍부터 농업으로 돌아섰고, 그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그들의 성향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동시에 농사를 짓기에 필요한 땅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도 그 나라의 평화로움을 증대시키는 일에 더욱 기여하였다.

79:8.3 (887.3) 과거의 성취(현재는 어느 정도 쇠퇴한)에 대한 의식과 압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민족의 보수적 경향 그리고 잘 발달된 가정생활이 조상 숭배를 탄생시켰는데, 조상에 대한 존경이 극에 달한 나머지 경배와 비슷한 상태로까지 이르렀다. 그리스-로마 문명이 붕괴된 후 거의 500년 동안 유럽에 있는 백색 인종들 가운데에서 매우 비슷한 태도가 유행된 적이 있었다.

79:8.4 (887.4) 싱랑톤이 가르쳤던 “하나의 진리”에 대한 믿음과 경배는 한 번도 전반적으로 사라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롭고도 더 높은 진리를 추구하려는 경향은, 이미 설립된 것을 숭배하려는 경향이 커짐으로써 빛을 잃게 되었다. 황색 인종의 천재는 미지의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이미 알려진 것을 보존하는 쪽으로 서서히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진보하던 문명이 정체 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79:8.5 (887.5) 기원 전 4,000년으로부터 500년 사이에, 황색 인종의 정치적인 재(再)통일이 이룩되었지만, 양쯔 강과 황하에 있는 중심지들의 문화적 연합은 이미 이룩되어 있었다. 후대의 부족 집단들의 정치적인 재통일에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전쟁에 대한 사회적 견해는 빈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조상 경배와 늘어나는 숫자의 방언들 그리고 수천 년 동안의 군사적 활동 부재(不在)로 말미암아 이 민족은 과도한 평화를 누려왔다.

79:8.6 (887.6) 발전된 국가 체제로 일찍부터 발전될 가능성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황색 인종은 문명의 기술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농업과 원예술의 영역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센시와 호난에서는 농민들이 물을 이용하는 문제에 부딪혔고 그 해결을 위해 집단적인 협동이 요구되었다. 그러한 관개(灌漑)와 토양-보존의 문제들은, 상호의존의 발달에 상당히 기여하였고 나중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집단들 간의 평화 증진을 가져왔다.

79:8.7 (887.7)

곧, 기록하는 기술이 발달되고 학교들이 설립됨으로써,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식이 보급되도록 기여하였다. 그러나 일찍부터 인쇄술이 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의문자 체제의 복잡한 특성 때문에 지식인 계층의 숫자가 매우 제한되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사회적인 표준화와 종교-철학적 독단화에 대한 진행이 빠른 속도로 계속 진행되었다. 조상 숭배에 대한 종교적 발전은, 자연 경배를 포함하는 미신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더욱 복잡하게 되었지만, 하느님에 대한 실제적 개념의 남겨져 있던 흔적이 상제(上帝)에 대한 황제로서의 경배 속에 간직된 채로 남아 있었다.

79:8.8 (888.1)

조상 숭배의 중대한 약점은 뒤쪽을-바라보는 철학을 조장하는 점이다. 지난날로부터 지혜를 수집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난날을 진리의 유일한 근원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어리석은 짓이다. 진리는 상대적이고 확대되는 것이다; 그것은 항상 현재 안에 회고적(回顧的)인 철학을 증진시킨다는 점이다. 과거의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수집하는 것이 아무리 현명하다 할지라도, 과거의 사람들을 유일한 진리의 근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진리는

상대적이고 확대되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속에서 항상 살아있어서, 각각의 사람 세대들마다—심지어는 각각의 세대들마다—새로운 표현을 이룩한다.

79:8.9 (888.2) 조상 숭배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러한 태도가 가족에게 미치는 유용성이다. 중국 문명의 놀랄만한 안정성과 지속성은 최고의 상태로 화합된 가족의 결과인데, 왜냐하면 문명은 가족의 효과적인 활동에 직접적으로 의존되기 때문이다; 중국에 있어서의 가족은 사회적 중요성을 달성하였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의의(意義)를 성취하였는데, 다른 민족들이 이것을 시도한 경우는 거의 없다.

79:8.10 (888.3) 성장하는 조상 경배의 예배종파에 의해서 강요되는, 자식으로서의 헌신과 가족에 대한 충성은, 우월한 가족 관계 형성과 영구적인 가족 집단의 형성을 보장하였으며, 문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촉진시켰다:

79:8.11 (888.4) 1. 재산과 부(富)의 보존.

79:8.12 (888.5) 2. 한 세대 이상의 체험이 쌓이게 함.

79:8.13 (888.6) 3. 과거의 기술과 과학에 있어서의 자녀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79:8.14 (888.7) 4. 의무에 대한 강한 인식의 발달, 도덕성 증진, 그리고 윤리적 민감성의 증강.

79:8.15 (888.8) 안드-사람들의 도래와 함께 시작되었던, 중국 문명의 발달기는 그리스도 이전 6세기의 엄청난 윤리적, 도덕적, 반(半)종교적 각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전승은 과거의 진화에 대한 어렵פות한 기록을 보존하였다; 어머니 중심의 가족으로부터 아버지 중심의 가족으로의 전환, 농업의 확립, 고안건축의 발달, 산업의 개시—이 모든 것들이 연속적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비슷한 설명들보다 훨씬 정확하게, 미개한 차원으로부터 우월한 민족이 훌륭하게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시기 동안에 그들은 원시적인 농업사회로부터 보다 높은 사회적 체제로 발전되었는데, 그 체제는 도시들, 제조업, 금속 가공, 상업 교역, 정부, 기록, 수학, 예술, 인쇄 등을 포함한다.

79:8.16 (888.9) 그리하여 황색 인종의 고대 문명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내려오면서 지속되어 왔다. 최초의 중요한 발전이 중국 문명에서 발생한 이래 거의 40,000년이 지났으며, 여러 차례 퇴보의 과정이 있었지만, 한의 아들들이 세운 문명은 20세기 시대까지 내려오는 계속적인 진보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보여줄 정도로 거의 모든 것이 전해지고 있다. 백색 인종들의 기계적인 발전과 종교적인 발전이 하나의 높은 체제를 이룩하고는 있지만, 가족의 충성심이나 집단적 윤리 또는 개인적 도덕성에 있어서는 중국인보다 뛰어난 적이 없었다.

79:8.17 (888.10) 이러한 고대의 문화는 인간의 행복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수많은 인간 존재들이 그 업적에 의해서 혜택을 받으면서 살다가 죽었다. 이 위대한 운명은 수세기 동안 과거에 얻었던 명예로 만족해 왔지만, 인간 존재의 초월적인 목표를 새롭게 계획하기 위하여, 영원한 진보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을 다시 한 번 시작하기 위하여 지금도 각성을 하고 있다.

79:8.18 (888.11) [네바돈의 천사장에 의해서 제시되었음]

제 80 편 서방에서의 안드-사람 확대

80:0.1 (889.1) 유럽의 청색 인종은, 비록 자체적으로 거대한 문화적 문명을 성취하지는 못하였지만, 아담과 석인 혈통들이 후대의 안드-사람 침입자들과 혼합되었을 때, 보라색 인종과 그 후손인 안드-사람의 시대 이후로 유란시아에 계속 나타났던 것들 중에서 활동적인 문명을 달성하기에 가장 유능한 혈통들 중의 하나를 창출한 생물학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80:0.2 (889.2) 현대의 백색 민족들은, 산기 종족들, 적색 인종 그리고 황색 인종의 일부 그리고 특별히 청색 인종과 섞이게 되었던 아담의-혈통 중에서 남아 있는 사람들을 흡수하였다. 모든 백색 인종들 속에는 상당한 비율의 순수한 안돈-사람 혈통이 포함되어 있으며 초기의 낫-사람 혈통들은 훨씬 더 많이 들어 있다.

제 1 장. 유럽으로 들어간 아담-사람들

80:1.1 (889.3) 마지막 안드-사람들이 유프라테스 계곡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들의 동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험가들, 선생들, 상인들, 그리고 전사들로 유럽에 들어갔다. 보라색 인종이 활동하던 초기 시대 동안에는 지중해 해구(海溝)가 지브랄터 해협과 시칠리아

연결육지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다. 사람들의 아주 초기 해상 교역 일부는 이러한 내륙 호수들에서 이루어졌는데, 북쪽으로부터 온 청색 인종과 남쪽에서 온 사하라인 들이 동쪽으로부터 온 낫-사람들 그리고 아담-사람들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다.

80:1.2 (889.4) 지중해 해구의 동쪽 지역에서, 낫-사람들은 그들의 가장 광범위한 문화들 중의 하나를 이미 이룩하고 있었으며, 이 중심지들로부터 유럽의 남부 쪽으로 어느 정도 확산되어 들어갔지만 특별히 아프리카 북부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갔다. 넓은 머리를 가진 낫-사람-안돈-사람 시리아인 들은, 서서히 융기되는 나일 삼각주(三角洲)에 정착하였기 때문에 도기(陶器) 제조술과 농업을 매우 일찍부터 도입하였다. 또한 그들은 양, 염소, 소, 그리고 길들여진 다른 동물들을 수입하였으며 크게 개선된 금속 가공 방법을 들여왔는데, 그 당시에는 시리아가 그러한 산업의 중심지였다.

80:1.3 (889.5) 30,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인들의 꾸준한 흐름 줄기를 받아들였으며, 그들을 따라 예술과 문화가 전해져서 나일 계곡에

풍성하게 심어졌다. 그러나 엄청난 숫자의 사하라 민족들이 유입되어 나일 강 주변의 초기 문명을 크게 약화시켰기 때문에 약 15,000년 전에는 이집트의 문화 차원이 가장 낮은 차원으로 떨어졌다.

80:1.4 (889.6) 그러나 초기 시대에는 아담-사람들의 서부 이주를 방해하는 것이 거의 없었다. 사하라는 목동들과 농사짓는 사람들이 널리 퍼져 있는 넓은 목초지였다. 사하라에 사는 이 사람들은 제조업에 종사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를 건설한 적도 없었다. 그들은 사멸된 녹색 그리고 오렌지색 인종들의 혈통을 많이 간직한 남색-흑색 집단에 속하였다. 그러나 습기가 많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번영하고 평화로운 문명을 소멸시키고 그 땅이 용기되기 전까지, 그들은 아주 제한된 양의 보라색 유전을 받았다.

80:1.5 (890.1) 아담의 피가 대부분의 인간 종족에게 공유되었지만, 다른 종족들보다 더 확실하게 제공된 어떤 종족들이 있었다. 인도의 혼합된 종족들과 아프리카에 있는 짙은 색의 사람들은 아담-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였다. 적색 종족이 멀리 이주하여 아메리카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적색 종족과 자유롭게 섞였을

것이며, 황색 종족과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되었겠지만, 황색 종족도 마찬가지로 너무 먼 아시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접촉하기가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험심이나 이타심이 작용하였을 때, 또는 유프라테스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유럽에 있는 청색 종족들과 연합하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선택하였던 것이다.

80:1.6 (890.2) 그 당시에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청색 인종은, 초기에 이주하던 아담-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종교적 실천 관행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으며, 보라색 인종과 청색 인종은 서로 성적 끌어당김을 매우 많이 느꼈다. 청색 인종들 중에서 최상인 자들은, 아담-사람과 결혼하도록 허락 받는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모든 청색 남성은 어떤 아담-사람 여인의 호감을 살 수 있을 만큼 능숙하고 예술적인 상태가 되고자 하는 야심을 품었으며, 우월한 청색 여인의 최고 소원은 아담-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이었다.

80:1.7 (890.3) 이주하는 에덴의 아들들은 청색 인종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유형의 사람들과 서서히 연합하게 되었는데,

끈질기게 버티는 네안데르탈 혈통을 무자비하게 멸절시키면서 자기들의 문화적 실천 관행들을 활성화시켰다. 열등한 혈통들을 제거시키는 방법과 병합된 이러한 종족 혼합 기법은, 12가지 이상의 강건하고 진보적인 집단의 우월한 청색 인종들을 형성하였는데, 그들 중의 하나에게 너희는 크로마농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80:1.8 (890.4) 이러한 이유들과 또 다른 이유들로 인하여, 이주하기에 더 유리한 조건이 조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초기 물결이 거의 배타적으로 유럽을 향해 방향을 잡았던 것이다. 그리고 현대 유럽 문명이 앞서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환경 때문이었다.

제 2 장. 기후와 지형의 변화

80:2.1 (890.5) 유럽으로 들어간 보라색 인종의 초기 확대는, 상당히 갑작스러운 특정한 기후 그리고 지형 변화에 의해서 가로막혔다. 북쪽의 얼음 덩어리들이 물러감에 따라, 수분이 많은 바람이 서쪽 방향에서 북쪽 방향으로 바뀌었고, 거대한 사하라의 끝없이 펼쳐진 목초지

지역들이 점차적으로 불모의 사막 지대로 바뀌었다. 키가 작고 거무스름하며 눈동자가 검고 머리가 길쭉한, 거대한 사하라 고원의 거주자들이, 이러한 건조 현상 때문에 흩어졌다.

80:2.2 (890.6) 보다 순수한 남색 인종의 집단이 남쪽으로 이동하여 중앙아프리카의 밀림 지대에 이르렀으며, 그 후로 그들은 그곳에 계속 남아있게 되었다. 비교적 더 많이 혼합된 집단들이 세 방향으로 퍼져나갔는데: 우월한 부족들은 서쪽으로 이주하여 스페인으로 갔고 그곳에서부터 인접된 유럽 지역으로 들어갔으며, 후대에 지중해 지역에 있었던 머리가 긴 갈색 인종들을 형성하였다. 가장 진보가 안 된 집단들은 사하라 고원의 동쪽으로 향하였고 아라비아로 이주하였으며 그곳에서 북부 메소포타미아와 인도를 거쳐 멀리 떨어진 실론 섬까지 이르렀다. 가운데에 해당되는 집단은 북동쪽으로 이동하여 나일 계곡에 이르렀고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기도 하였다.

80:2.3 (890.7) 데칸으로부터 이란과 메소포타미아를 통과하고 지중해의 양쪽 해안선을 따라 흩어졌던 현대의 민족들

속에서 어느 정도의 친족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2차 산각의 뿌리 때문이다.

80:2.4 (890.8) 아프리카에서 이러한 기후 변화가 일어날 무렵에, 잉글랜드가 대륙으로부터 분리되었고, 덴마크가 바다 밑으로부터 융기되었으며, 지중해의 서쪽 해구(海溝)를 막는 지브롤터 해협이 지진의 영향으로 길을 열어주게 되어, 이 내륙 호수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져서 대서양과 같은 높이가 되었다. 이윽고 시칠리아 연결육지가 가라앉으면서, 지중해라는 하나의 바다가 탄생되었고 대서양과 연결되었다. 이러한 자연의 대격변으로 인하여 인간의 수많은 거주지들이 홍수를 당하였으며, 세계의 전체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은 생명의 손실이 야기되었다.

80:2.5 (891.1) 지중해 분지가 이렇게 흡수됨으로써, 아담-사람들의 서쪽 방향 이주는 즉각적으로 줄어들었고, 반면에 사하라 사람들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그들은 증가하는 인구를 해결하기 위해 에덴의 북동쪽으로 탈출구를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계곡으로부터 아담의 후예들은 북쪽으로 여행하면서, 그들은 그 당시에 확대되어 있었던

카스피해와 많은 산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 세대 동안 아담-사람들은 투르케스탄 전역에 두루 흩어지게 된 그들의 정착지 주위에서 사냥과 목축을 하고 주변의 땅을 경작하였다. 웅장한 이 민족은 자기들의 영역을 서서히 유럽으로 확장시켰다. 그러나 이때 동쪽으로부터 유럽으로 들어간 아담-사람들은 청색 인종의 문화가 아시아의 문화보다 수천 년 뒤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와 거의 완벽하게 차단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제 3 장. 크로마뇽 청색 인종

80:3.1 (891.2) 청색 인종의 고대 문화 중심지들은 유럽의 모든 강들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현재는 솜르강 만이 빙하기 이전 동안에 흘렀던 동일한 경로를 따라 흐르고 있다.

80:3.2 (891.3) 우리가 청색 인종이 유럽 대륙에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곳에는 여러 유형의 종족들이 있었다. 35,000년 전에, 유럽의 청색 인종들은 이미 적색 그리고 황색 인종 혈통들을 갖고 있는 크게 혼합된 민족이었으며, 반면에 대서양 해안 지역과 지금-현재의

러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한 양의 안돈-사람의 피를 흡수한 상태였고, 남쪽 지역에서는 사하라의 민족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수많은 그 종족 집단들을 낱알이 열거하는 것은 헛된 노력이 될 것이다.

80:3.3 (891.4) 아담의-이후 초기 시대인 이때의 유럽 문명은, 청색 인종의 활동력과 예술이 아담-사람들의 창조적인 상상력과 혼합되어 나타난 독특한 것이었다. 청색 인종들은 매우 활동적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담-사람의 문화적 그리고 영적 지위를 엄청나게 저하시켰다. 허다한 자들이 처녀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경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사람들에게는, 크로마논에게 자기들의 종교를 심어 주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몇 만 년 동안 유럽에서 종교는, 인도와 이집트에서 이룩된 종교적 발전에 비교해 볼 때 낮고 쇠퇴한 시기에 있었다.

80:3.4 (891.5) 청색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거래에서 완전하게 정직했고, 혼합된 아담-사람들의 성(性)적 타락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처녀신분을 존중하였고, 전쟁으로 인하여 남자들이 부족할 경우에만 일부다처제를 실천하였다.

80:3.5 (891.6) 이 크로마농 민족들은 용감하고 선견지명이 있는 종족이었다. 그들은 어린이를 교양(敎養)시키는 일에 있어서 효과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에는 부모들 둘 모두 참여하였으며, 비교적 나이가 많은 아이들의 봉사가 충만하게 활용되었다. 각각의 어린이는 동굴 속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부싯돌을 만드는 일과 기술을 익히는 훈련을 신중하게 받았다. 어려서부터, 여자들은 가사에 있어서의 기술과 미숙한 농업에 잘 숙달되어 있었고, 반면에 남자들은 노련한 사냥꾼과 전사들이었다.

80:3.6 (891.7) 청색 인종들은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고 음식을 모았다;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숙련자이었다. 그들은 돌도끼를 만들어 나무들을 베고, 통나무로 오두막을 지었는데, 일부는 땅 밑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짐승의 가죽으로 지붕을 덮었다. 그리고 시베리아에는 아직도 그와 비슷하게 오두막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 남부 지대의 크로마농인들은 대개 돌로 지은 집과 동굴에서 살았다.

80:3.7 (892.1) 혹독한 겨울 동안에는 밤마다 동굴 입구에 파수자를 세워서 동사(凍死)하는 것을 막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용감하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예술 감각이 뛰어났으며; 아담의과 혼합됨으로써 창조적인 상상력이 갑자기 증진되었다. 청색 인종의 예술은, 짙은 색의 피부를 가진 종족들이 아프리카로부터 스페인을 거쳐 북쪽으로 올라오기 전인, 약 15,000년 전에 최고로 발달되었다.

80:3.8 (892.2) 약 15,000년 전에 알프스 삼림이 광대하게 퍼져 나가고 있었다. 유럽의 사냥꾼들은 세계적인 풍성한 사냥터가 건조하고 메마른 사막으로 변하게 한 것과 동일한 기후 조건에 의해서 해안과 강변으로 쫓겨 가고 있었다. 비를 동반한 바람이 북쪽으로 바뀌자, 유럽의 광활한 목초지는 삼림으로 뒤덮이게 되었다. 이러한 갑작스럽고도 거대한 기후 변경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종족들은 사냥을 하던 상태에서 목축을 하는 상태로 바뀌었고, 일부는 어부 또는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80:3.9 (892.3) 이러한 변화들은 문화적인 진보를 가져온 반면, 특정한 생물학적 퇴보를 가져왔다. 그 전에 사냥을 하던 시대에는, 우월한 부족들이 높은 유형의 포로들과 결혼을

하였고 그들이 보기에 열등한 사람들은 반드시 멸절시켰었다. 그러나 그들이 정착지를 개발하기 시작하고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평범한 포로들을 노예로 삼게 되었다. 그리고 후대에 크로마농인 유형의 인종 전체를 엄청나게 타락시킨 것은 바로 이 노예들의 후손들이었다. 이러한 문화적 퇴보는, 메소포타미아인 들의 최종적이고도 총체적인 침입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 크로마농인 유형을 재빨리 흡수하면서 그리고 백색 인종들의 문명을 시작하면서, 동부로부터의 새로운 기운을 받게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제 4 장. 유럽의 안드-사람 침입

80:4.1 (892.4) 안드-사람들이 한결같은 흐름으로 유럽에 쏟아져 들어오는 동안, 일곱 차례에 걸친 주요 침입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람들은 세 개의 거대한 물결을 이루면서 말을 타고 들어왔다. 일부의 사람들은 에게 해의 섬들을 거쳐서 그리고 다뉴브 계곡으로 유럽에 들어왔으나, 초기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순수한 혈통의 사람들은 볼가 강과 돈 강이 있는 목초지 지역을 건너는 북쪽의 길을 통하여 북서부 유럽으로 이주하였다.

80:4.2 (892.5) 세 번째와 네 번째 침입 사이에 때를 지어 이동한 안돈-사람들은 북쪽으로부터 유럽에 들어왔는데, 러시아의 강들과 발틱 해의 길을 통하여 시베리아로부터 이주하였다. 그들은 북쪽에 있는 안드-사람 부족들과 즉시 동화되었다.

80:4.3 (892.6) 순수한 보라색 인종의 초기 확대는, 그들보다 후대의 반(半)군사적이고 정복하기를 좋아하는 안드-사람 후손들보다는 훨씬 더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아담-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였지만; 낫-사람들은 호전적이었다. 이 혈통들의 연합은, 나중에 산각 종족들과 섞이면서, 실재적인 군사적 정복을 이룩한 유능하고 공격적인 안드-사람들을 형성하였다.

80:4.4 (892.7) 그러나 서방에서 안드-사람들이 통치하도록 만든 진화적 요인은 말(馬)이었다. 흩어지던 안드-사람들은 그 말 때문에, 그 때까지 존재하지-않았던 기동성의 장점을 갖게 되었는데, 말을 탄 안드-사람의 마지막 집단은 재빨리 카스피 해를 돌아서 유럽 전체로 퍼져 나갈 수 있었다. 그 전에 있었던 안드-사람의 물결은 너무도 느린 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멀어진 물결은

모두 집대성이-해체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후대의 물결들은 너무도 빨리 진행되었으므로 밀착된 집단을 이루면서 유럽에 도착하였고, 어느 정도 높은 문화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80:4.5 (893.1) 그리스도 이전 6,000년부터 7,000년 동안에, 거칠게 말을 다루는 안드-사람 기수(騎手)들이 출현하였을 때, 중국과 유프라테스 지역을 제외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세계는, 매우 제한된 문화적 진보를 10,000년 동안 이룩해 오고 있었다. 그들이 러시아의 평원을 지나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청색 인종의 가장 우수한 자를 흡수하고 가장 열등한 자를 멸절시켜가면서, 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혼합되었다. 이들이 소위 노르딕이라고 불리는, 스칸디나비아와 독일 그리고 앵글로색슨 민족들의 선조가 되는 인종들의 조상이었다.

80:4.6 (893.2) 우월한 청색 혈통들이 북부 유럽 전체를 통하여 안드-사람들에 의해 오래지 않아서 충분히 흡수되었다. 오직 라플란드에서만(그리고 브리타니에서 어느 정도) 옛 안돈-사람들이 비슷한 정도만이라도 자기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었다.

제 5 장. 안드-사람의 북 유럽 정복

80:5.1 (893.3) 북부 유럽의 부족들은, 메소포타미아로부터 투르케스탄 남쪽 러시아 지역을 통과하여 꾸준히 밀려들어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강되고 증진되었으며, 말을 탄 안드-사람의 마지막 물결이 유럽을 휩쓸게 되었을 때에는, 안드-사람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세계의 다른 모든 지역들에서 발견되는 숫자보다 이미 더 많이 있었다.

80:5.2 (893.4) 3,000년 동안, 북부에 있는 안드-사람들의 군사적 본부는 덴마크에 있었다. 이 중심지로부터 계속적인 정복의 물결이 퍼져 나갔으며, 세기(世紀)들이 지나감에 따라 메소포타미아 정복자들과 피정복 민족들이 최종적으로 혼합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는 안드-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백색 인종이 점점 많아졌다.

80:5.3 (893.5) 북쪽 지역에서 청색 인종이 이미 흡수되었고 결국에는 말을 탄 백색 인종 침입자들에게 굴복 당한 반면, 백색 인종과 혼합된 진보된 부족들은 크로마뇽인들로부터 완강하고 지속적인 저항을 받게 되었지만, 그들은 우월한

지성과 언제까지나-증강하는 생물학적 요소들에 힘입어서, 그 전에 있었던 종족을 전멸시켰다.

80:5.4 (893.6) 백색 인종과 청색 인종 사이의 결정적인 투쟁은 솜므강 계곡에서 벌어졌다. 이곳에서, 전성기에 도달한 청색 인종은 남쪽으로 이동하는 안드-사람들과 심한 투쟁을 벌였고, 이 크로마뇽들은 백색 인종 침입자들의 우월한 전술 앞에 굴복 당하기까지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기 영토를 성공적으로 지킬 수 있었다. 솜므 강에서 벌어진 마지막 전투에서 북쪽 무리의 지휘관으로서 승리를 거둔 토르는, 북부 백색 부족들의 영웅이 되었으며 나중에는 그들 중의 일부에 의해서 하나의 하느님으로 존경되었다.

80:5.5 (893.7) 가장 오래 까지 유지된 청색 인종의 본거지는 남부 프랑스에 있었지만, 마지막의 극심한 군사적 저항은 솜므 강 주변에서 굴복 당하였다. 후대의 정복은, 상업적인 침투와 강(江)들 유역의 과도한 인구 증가에 의해서 그리고 우월한 인종과의 지속적인 상호 결혼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열등한 인종을 냉혹하게 멸절시키는 것과 결부되었다.

80:5.6 (893.8)

안드-사람 원로들로 구성된 부족 협의회가 열등한 포로에 대하여 부적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 그 포로는 복잡한 의식을 거쳐서 샤만 사제들에게 넘겨졌고, 그 사제는 그를 데리고 강으로 가서 "행복한 사냥터"로 들어가는 예식—익사시킴—이 관리-운영되었다. 유럽의 백색 인종 침입자들은, 자기 혈통으로 빨리 흡수되지 않고 대항하는 모든 민족들을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멸절시켰으며, 그렇게 해서—그리고 빠른 속도로—청색 인종은 멸종되었다.

80:5.7 (893.9)

크로마농 청색 인종은 현대의 유럽 종족들을 위한 생물학적 기초의 구성 요소가 되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본거지를 후대에 정복한 강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흡수됨으로써만 살아남게 되었다. 청색 인종 혈통은 유럽의 백색 인종에게 많은 육체적 생기와 불굴의 특색들을 제공하였지만, 피가 섞인 유럽 민족들의 유머와 상상력은 안드-사람들로부터 온 것이었다. 북부 지역의 백색 인종 속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안드-사람과 청색 인종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안드-사람 문명의 즉각적인 상실, 과도기적 본성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에는, 이들 북부 야만인들의 잠재적인

우월성이 현시되었고, 지금-현재의 유럽 문명 속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80:5.8 (894.1) 기원전 5,000년경에, 진화하는 백색 인종들이, 독일과 북부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섬들을 포함하는 북부 유럽 전체를 지배하였다. 중부 유럽은 둥근 머리의 안돈-사람들과 청색 인종에 의해서 한동안 통제되었다. 그 안돈-사람들은 주로 다뉴브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안드-사람들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쫓겨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제 6 장. 나일 근처의 앤다이트

80:6.1 (894.2) 마지막 안드-사람 이주가 발생한 시기부터, 유프라테스 계곡에서는 문화의 쇠퇴가 시작되었고, 문명의 직접적인 중심지는 나일 계곡으로 바뀌었다. 이집트는, 지구상에 있는 가장 진보된 집단의 본부(本部)로서, 메소포타미아의 후계자가 되었다.

80:6.2 (894.3) 나일 계곡은 메소포타미아 계곡보다 약간 먼저 홍수를 겪기 시작하였지만 훨씬 적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초기의 퇴보는 계속적으로 이주해 들어오는 안드-사람들에 의해서 보충되었고 또 그 이상의 효과가 있었으므로, 이집트의 문화는 비록 실제적으로는

유프라테스 지역으로부터 유래되기는 하였지만 서서히 선두의 자리로 나서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기원전 5,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가 홍수를 겪는 동안, 이집트에는 일곱 가지의 독특한 집단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하나를 제외한 전체가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왔다.

80:6.3 (894.4) 유프라테스 계곡으로부터의 마지막 탈출이 발생되었을 때, 이집트는 가장 숙련된 예술가들과 거장들을 많이 받아들였다. 이 안드-사람 거장들은, 강에서의 생활과 홍수 그리고 관개와 건조한 계절 등에 속속들이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마치 고향에 있는 듯이 매우 안정감을 가졌다. 그들은 나일 계곡의 보호된 지역으로부터 혜택을 누렸는데; 유프라테스 주변에 있었을 때보다는 적으로부터의 습격과 공격을 훨씬 적게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인들의 금속 가공 기술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들은 이곳에서 철광석을 가공하였는데, 그 철광석은 흑해 지역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시나이 산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이었다.

80:6.4 (894.5) 이집트인들은 지방마다 다른 신(神)들을 매우 일찍부터 통합하여 하나의 정교한 국가적 하느님들의

체계를 세웠다. 그들은 광범위한 신학 체계를 개발하였고, 똑같이 광범위하면서도 부담을 주는 사제(司祭)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몇 명의 다른 영도자들은, 셋-사람의 초기 종교적 가르침들 중에서 남아있는 것들을 되살려 보려고 애쓰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안드-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최초의 석조 건축물을 지었다. 돌로 지은 피라미드들 중에서 처음으로 건축되고 가장 절묘한 것은, 안드-사람 고안건축술의 천재였던 임호텝에 의해서 세워졌으며, 그가 수상으로 일할 때였다. 그 전에 세워진 건물들은 벽돌을 이용하였고, 세계의 여러 다른 지역들에서는 돌로 지은 건축물들이 많이 세워졌었지만, 이집트에서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 건축 기술은 이 위대한 건축자의 시대 이후로 계속 퇴보되었다.

80:6.5 (894.6) 이러한 찬란한 문화 신(新)시대는 나일 주변의 내란으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그 나라는 메소포타미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곧 침략을 당하였는데, 황폐한 아라비아로부터의 열등한 부족들과 남쪽으로부터의 흑색 인종에 의해서였다. 그 결과로, 사회적 진보는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퇴보를 거듭하였다.

제 7 장. 지중해 섬들의 안드-사람

80:7.1 (895.1) 동부 메소포타미아의 땅에서 문화가 퇴보하는 동안, 지중해 동부에 있는 섬들의 우월한 문명은 어느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었다.

80:7.2 (895.2) 기원전 약 12,000년경에, 총명한 안드-사람들의 부족이 크레테로 이주하였다. 이 섬은 그러한 우월한 집단이 그토록 초기에 정착한 유일한 섬이었으며, 거의 2,000년이 지나서야 이 항해자들의 후손이 인접된 섬들로 퍼져 나갔다. 이 집단은 머리가 좁고 키가 비교적 작은 안드-사람들이었는데, 북쪽에 있는 낫-사람들의 반-사람 분파와 섞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키는 모두 6피트 미만이었고, 그들보다 키가 크며 열등한 동족들에 의해서 본토로부터 실제로 쫓겨난 사람들이었다. 크레테로 이주한 이 사람들은, 옷감을 짜는 일, 금속 가공, 도예술, 납공업, 그리고 돌을 건축 재료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고도의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기록을 남기는 일을 하였고 목축업과 농사짓는 일을 하였다.

80:7.3 (895.3) 그들이 크레테에 정착한 후로 거의 2,000년이 흐른 뒤에, 키가 큰 아담아들 후손들의 집단 하나가 북부 지역의

섬을 거쳐서 그리스로 들어왔는데, 메소포타미아의 북쪽에 있는 고원지대의 고향으로부터 거의 똑바른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그리스인들의 선조인 이 사람들은 아담아들과 라타의 직계 후손인 사토에 의해서 서쪽 방향으로 인도되었다.

80:7.4 (895.4) 최종적으로 그리스에 정착한 이 집단은, 아담아들-사람들의 두 번째 문명의 마지막을 장식하였던 선택되고 우월한 민족이었던 37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아담아들의 후대 아들들은 창발 하는 백색 인종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혈통들이었다. 그들은 고도의 지성을 가진 계층이었고, 육체적으로도 호감을 샀는데, 첫 번째 에덴의 시대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

80:7.5 (895.5) 그리스와 에게 해의 섬들 지역은 이윽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뒤를 이어서 서방 세계의 무역과 예술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이집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아담아들-사람 선구자들의 문화를 제외하고는, 에게 해 지방의 모든 예술과 과학 역시 실천적으로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유래된 것이었다. 이 선구자들의 모든 예술과 재능들은 아담아들,

아담과 이브의 첫 번째 아들과, 칼리가스티아 영주의 순수한 낯-사람 참모로부터 이어진 혈통의 후손인 한 딸, 아담아들의 비범한 두 번째 부인으로부터 나온 자손의 직접적인 유산이었다. 그리스인들이 자기들을 하느님들과 초인간적 존재들로부터 탄생된 직접적인 후손으로 여기는 신화적 전승들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80:7.6 (895.6) 에게 해 지역은 다섯 차례에 걸친 뚜렷한 문화적 단계를 지나왔는데, 단계가 지날 때마다 영적인 수준이 저하되었고, 그리스의 후기 세대들이 사들인 다뉴브 지역에서의 노예들의 급속도로 증가하는 평범한 후손들의 압력에 눌려서, 최후의 영화롭던 시대는 머지않아 소멸되었다.

80:7.7 (895.7) 카인의 후예들의 어머니 예배종파가 최고로 유행되었던 것은 바로 이 시기의 크레테에서였다. 이 예배종파는 영화롭게 된 이브를 “대모(大母)”로 경배하였다. 이브의 형상이 도처에 있었다. 수천 개의 대중을 위한 성소들이 크레테와 소아시아 전역에 세워졌다. 그리고 어머니를 숭배하는 이 예배종파는

그리스도 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왔는데, 나중에는, 이 세상에서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것으로 변장하면서 초기 그리스도교 종교와 합쳐졌다.

80:7.8 (895.8) 기원전 약 6,500년 전까지, 안드-사람들의 영적 유산에서 큰 쇠퇴가 발생하였다. 아담의 후손들은 광범위하게 흩어졌고, 보다 오래되고 숫자가 많은 인간 종족들에게 실질적으로 삼켜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안드-사람 문명의 이러한 쇠퇴는, 그들의 종교적인 표준들의 소멸과 함께,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종족들을 영적으로 가난하게 내버려두었다.

80:7.9 (896.1) 기원전 5,000년경에는, 3개의 가장 순수한 아담 후손 혈통들이 수메르와 북부 유럽 그리고 그리스에 남아 있었다. 메소포타미아 전체는, 아라비아로부터 스며들어오는 혼합되고 짙은 색의 종족들의 물결에 의해서 서서히 저하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열등한 민족들의 도래는, 안드-사람들의 생물학적 문화적 잔재들이 더욱 널리 흩어지도록 기여하였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 전체로부터, 더욱 모험심이 많은 민족들이

서쪽으로 쏟아져 나와서 여러 섬들로 들어갔다. 이
이주민들은 곡식과 채소를 재배하였고 길들인 동물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80:7.10 (896.2) 기원전 약 5,000년경에, 진보적인 메소포타미아인
들의 강력한 무리가 유프라테스 계곡으로부터 밖으로
이동하여 키프로스 섬에 정착하였는데, 이 문명은 약
2,000년 정도 지난 후에 북쪽으로부터 들어온 야만적인
유목민들에 의해서 전멸되었다.

80:7.11 (896.3) 또 다른 거대한 거류민단이, 후대의 칼타고
지역에서 가까운 지중해 연안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로부터 많은 숫자의 안드-사람들이
스페인으로 들어갔고 나중에는, 일찍이 에게 해
섬들로부터 이탈리아로 들어왔던 그들의 동족들과
스위스에서 섞이게 되었다.

80:7.12 (896.4) 이집트가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적 퇴보를 답습할
때, 매우 유능하고 진보를 이룩한 여러 가족들이 크레테로
피신하였으며, 그렇게 해서, 이미 진보를 이룩한 이 문명을
크게 증강시켜 주었다.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열등한
집단들이 들어와서 크레테의 문명이 위협을 당하자,

문화가 좀 더 발전된 가족들이 서쪽으로 이동하여
그리스로 들어갔다.

80:7.13 (896.5) 그리스인들은 위대한 선생들과 예술인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무역인 들과
거류민단이었다. 결국에는 그들의 예술과 상업을
삼켜버린 열등한 물결에 압도당하게 되기 전에는, 그들은
성공적으로 많은 문화적 전초기지들을 서쪽 방향에
세웠기 때문에 초기의 그리스 문명에 있어서 엄청난
진보가 남부 유럽의 후대 민족들 속에 계속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아담아들-사람들의 혼합된 후손들 대부분은
주변에 있는 본토의 부족들 속에 합병되었다.

제 8 장. 다뉴브의 안돈-사람

80:8.1 (896.6) 유프라테스 계곡의 안드-사람 민족들 중에서
북쪽으로 이주하여 유럽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청색
인종과 섞였으며, 서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지중해
지역으로 들어가서 남아있는 사하라인 들과 남부의 청색
인종들과 섞였다. 그리고 백색 인종의 이 두 부류는, 그
당시에, 그리고 현재에도, 이 중심 지역들에 오랫동안
거주해 왔던 초기의 안돈-사람 부족들 중에서 산악 지역에

살아남은 넓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넓은 지역으로 흩어졌다.

80:8.2 (896.7) 이러한 안돈의 후손들은 중앙과 남부 유럽의 산악지대 대부분으로 분산되었다. 그들은 소아시아로부터 도착된 사람들에 의해서 종종 보충되었는데, 그들은 상당한 힘으로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다. 고대의 히타이트-사람은 안돈-사람의 혈통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기원되었는데; 그들의 창백한 피부와 넓은 머리는 그 종족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이 혈통은 아브라함의 조상을 낳았고, 그로부터 시작된 유대인 후손들의 얼굴 모양의 대부분의 특징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 후손들은 안드-사람들로부터 유래된 문화와 종교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의 언어는 안돈-사람과 분명하게 일치하였다.

80:8.3 (897.1) 이태리와 스위스 그리고 남부 유럽의 호수 위의 퇴적지 또는 통나무 방파제 위에 세운 집에서 거주하는 그 부족들은, 아프리카인과 에게 해 사람들 그리고 더욱 특별하게는 다뉴브의 이주자들의 확대하는 경계선에 해당하였다.

80:8.4 (897.2) 다뉴브 사람들은 안돈-사람들이었고, 발칸 반도를 통하여 유럽에 들어왔던 농부들과 목동들이었으며, 다뉴브 계곡을 따라 서서히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질그릇을 만들었고 땅을 경작하였으며 계곡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였다. 다뉴브 사람들의 가장 북쪽의 거주지는 벨기에 안에 있는 리지에 있었다. 이 부족들은, 그들의 문화적 중심지와 근원지로부터 멀리 이동하면서 급속도로 저하되었다. 가장 훌륭한 도기류는 초기 정착지들의 그 제품들이다.

80:8.5 (897.3) 다뉴브 사람들은 크레테에서 온 선교사들이 활동한 결과로 어머니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부족들은 작은 배를 타고 소아시아의 해안으로부터 온 안돈-사람 항해자들과 나중에 혼합되었는데, 그들도 역시 어머니를 경배하는 자들이었다. 그리하여 중앙 유럽의 대부분에는 넓은 머리를 가진 백색 인종들의 혼합된 유형의 사람들이 일찍부터 자리를 잡았고, 그들은 어머니를 경배하였으며 죽은 사람을 화장(火葬)시키는 종교적 실천 관행을 갖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돌로 만든 오두막에서 죽은 사람을 태우는 것은 그것이 어머니 예배종파자들의 관습이었었기 때문이다.

제 9 장. 세 종류 백색 인종

80:9.1 (897.4) 안드-사람의 이주가 끝나게 되면서 유럽에서의 인종적 혼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백색 인종들로 일반화되었다:

80:9.2 (897.5) 1. 북부의 백색 인종. 소위 노르딕 인종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주로 청색 인종과 안드-사람을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안돈-사람의 혈통이 섞여 있었고, 적색과 황색의 산각 종족의 혈통도 약간 섞여 있었다. 그리하여 북부의 백색 인종은 이 네 가지의 가장 바람직한 인간 혈통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유전자는 청색 인종으로부터 왔다. 전형적인 초기의 노르딕은 머리가 길고 키가 컸으며 금발의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 종족은 오래 전에 백색 민족들의 모든 지류(支流)들과 속속들이 혼합되었다.

80:9.3 (897.6) 침입하는 노르딕 사람들과 충돌한 유럽의 원시적인 문화는, 청색 인종과 피가 섞인 퇴화하는 다뉴브인 들이 이룩한 것이었다. 노르딕-덴마크 문화와 다뉴브-안돈-사람 문화는 라인 강에서 서로 만나

혼합되었는데, 오늘날 독일에 두 종족이 실존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80:9.4 (897.7) 노르딕 사람들은 발틱 해안에서 계속적으로 호박을 매매하였는데, 브렌너 통로를 통하여 다뉴브 계곡에 사는 머리가 넓은 사람들과 큰 교역을 이룩하였다. 다뉴브 사람들과의 이러한 광범위한 접촉으로 말미암아, 북부 지역의 이 사람들이 어머니를 경배하게 되었고, 죽은 사람을 화장하는 것이 수천 년 동안 스칸디나비아 전역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다. 유럽 전역에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백색 인종들의 유골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돌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납골 단지 속에서 오직 그 재만이 발견될 수 있다. 또한 이 백색 인종들은 집을 건축하였고; 결코 동굴에서 살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백색 인종의 초기 문화에 대한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그에 반하여 그 전에 있었던 크로마뇽인 유형은 동굴과 석굴 속에 안전하게 밀봉되어서 잘 간직되어 왔다. 사실 그대로 말하자면, 한 때 유럽의 북부 지역에는 퇴보하는 다뉴브 사람들과 청색

인종의 원시적인 문화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갑자기 나타난 그리고 매우 우월한 백색 인종의 문화가 있었다.

80:9.5 (897.8) 2. 중앙의 백색 인종. 이 집단은, 청색과 황색 그리고 안드-사람의 혈통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주로 안돈-사람이었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넓었고 가무잡잡하였으며 땅딸막하였다. 그들은 노르딕 종족과 지중해의 종족 사이를 빼기 모양으로 갈라놓았는데, 그 꼭대기는 프랑스 동부를 관통하였고 넓은 그 하부(下部)는 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었다.

80:9.6 (898.1) 거의 20,000년 동안, 안돈-사람들은 안드-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더 멀리 중앙아시아 북쪽으로 밀려났다. 기원전 3,000년경에는 점점 더 건조해지는 기후 때문에 이 안돈-사람이 투르케스탄으로 되돌아왔다. 이 안돈-사람은 수천 년 동안 계속 남쪽으로 밀려왔는데, 카스피 해와 흑해 부근에서 나뉘어져서, 발칸과 우크라이나의 두 길을 통하여 유럽으로 들어갔다. 이 침입에는 아담아들의 자손들 중에서 남은 집단들이 포함되었으며, 그 침입 기간의 하반기 동안에는, 상당한 숫자의 이란 안드-

사람들은 물론 셋 족속 사제들의 후손들도 많이 동행하였다.

80:9.7 (898.2) 기원전 2,500년 무렵에, 안돈-사람들 중에서 서쪽 방향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유럽에 이르렀다. 그리고 투르케스탄 언덕에 있었던 야만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전역과 소아시아 그리고 다뉴브 분지에 범람하게 됨으로써, 그 때까지의 문화적 퇴보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오래 지속된 퇴보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침입자들은 중앙 유럽에 있는 종족들의 성격을 분명히 안돈-사람과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알프스 산맥 근처의 사람들에게 특징적으로 계속 남아 있다.

80:9.8 (898.3) 3. 남부의 백색 인종. 갈색의 이 지중해 인종은 안드-사람과 청색 인종의 혼혈로 이루어졌는데, 북쪽의 경우보다는 안돈-사람의 혈통이 적게 들어 있었다. 또한 이 집단은 사하라인 들을 통하여 상당한 양의 2차 산각 혈통을 흡수하였다. 후대에 이르러서는, 백색 인종의 이 남부 집단에게는, 동부 지중해 사람들로부터 전달된 강력한 안드-사람 요소들이 주입되었다.

80:9.9 (898.4) 아무튼, 지중해의 근해 지역들은 기원전 2,500년에 있었던 거대한 유목민 침입이 있을 때까지 안드-사람들로 가득 채워졌다. 유목민들이 동부 지중해 구역들을 침입하였을 때, 육상 통행과 거래는 이 때 수세기 동안 거의 정지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육상 교통의 방해로 말미암아 해상 통행과 거래가 크게 확대되게 되었다; 지중해에서 배로 운반되는 교역은 약 4,500년 전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해상 교통 발전의 결과로, 지중해 분지의 연안 전체 지역에 두루 안드-사람들의 후손들이 갑작스럽게 확산되었다.

80:9.10 (898.5) 이러한 인종상의 혼합은, 남부 유럽인으로 하여금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이 혼합되도록 하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종족은 더욱 심한 혼합의 과정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청색-황색-안드-사람이 합쳐진 아라비아 민족과 많이 혼합되었다. 이 지중해 연안의 종족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실질적으로, 아주 자유스럽게 섞여서 실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유형인 것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지만, 일반적으로 그 구성원들은 키가 작고 머리가 길며 갈색의 피부를 가졌다.

80:9.11 (898.61) 북쪽 지역에서는 전쟁과 결혼을 통하여 안드-사람들이 청색 인종의 흔적을 없애버렸지만, 남부에서는 그들이 많이 살아남아 있었다. 바스크 사람들과 베르베르 사람들은 살아남은 이 종족의 두 지류들을 대표하지만, 이 사람들조차도 사하라인 들과 속속들이 섞였다.

80:9.12 (898.7) 이와 같은 내용은 기원전 약 3,000년경의 중앙 유럽에서 나타났던 인종 혼합에 대한 설명이다. 부분적인 아담의-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좀 더 높은 종족들 속에서는 피가 섞였다.

80:9.13 (898.8) 이 시기는 신석기 시대에 해당되며 도래되는 청동기 시대와 교차되는 때였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청동기 시대가 어머니 경배와 연관된다. 남부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신석기 시대가 태양 경배와 연관된다. 이 시기에는 모양이 둥글고 지붕이 없는 신전들을 세웠다. 유럽의 백색 인종들은 정력적인 건축자들이었고, 태양에 대한 상징으로 거대한 돌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스톤헨지를 세운 것도 그러한 성향 때문이었다. 태양 경배가 유행한 것은, 이때에 남부 유럽에서 농업이 크게 번창하던 때였음을 보여준다.

80:9.14 (899.1) 비교적 최근에 태양을 경배하던 시기의 미신적인 관습들은 브리타니 반도의 풍속들 속에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비록 1,500년 전에 그리스도교화 되었지만, 이 브리타니 사람들은 악마의 눈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신석기 시대에 사용하던 마법의 장식물들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그들은 번갯불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뇌석(雷石)을 아직도 굴뚝 속에 넣어두고 있다. 브리타니 사람들은 스칸디나비아의 노르딕 사람들과 한 번도 섞인 적이 없었다. 그들은 서부 유럽에 있었던 순수한 안돈-사람 주민들의 생존자들인데, 지중해 연안의 혈통들과 혼합되었다.

80:9.15 (899.2) 그러나 백색 인종들을 노르딕과 알프스 그리고 지중해 연안 주민으로 분류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구분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피가 섞였기 때문이다. 한때는 백색 인종을 그러한 계통으로 상당히 잘 분류할 수 있었지만, 그 후로 광범위한 혼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명쾌하게 그 차이들을 정체성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기원전 3,000년경에도, 고대의 사회적 집단들이

하나의 종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오늘날 북아메리카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이다.

80:9.16 (899.3) 유럽의 이 문화는 5,000년 동안 계속 자라면서 어느 정도 서로 섞였다. 그러나 언어 장벽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서방 국가들끼리의 충만한 상호왕래는 방해 받았다. 지나간 세기 동안 이 문화는 북아메리카의 국제적으로 구성된 주민들 속에서 섞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체험해 오고 있다; 그 대륙의 미래는, 현재는 물론 미래의 주민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종적인 유전인자들의 본질특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유지되는 사회적 문화의 차원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80:9.17 (899.4) [네바돈의 천사장에 의해서 제시되었음]

제 81 편 현대 문명의 발전

81:0.1 (900.1) 칼리가스티아와 아담의 임무 속에 부여되었던 세계 개량에 대한 계획의 실패가 여러 번 오르내린 것에 상관없이, 인간 종족들의 기본적인 유기체 진화가 계속되어서 그 종족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진보와 인종적인 발전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게 하였다. 진화는 지연될 수는 있지만 중지될 수는 없다.

81:0.2 (900.2) 비록 숫자적으로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적었지만, 보라색 인종의 영향은, 문명의 진보를 이룩하였는데, 그것은, 아담 시대 이후로, 거의 백만 년에 해당하는 그 이전의 전체 실존들에 두루 인류의 진보를 훨씬 능가해 왔다.

제 1 장. 문명의 요람

81:1.1 (900.3) 아담 시대 이후 거의 35,000년 동안, 문명의 발상지는 아시아의 남서부에 있었는데, 나일 계곡으로부터 시작하여 동쪽으로 뻗어 나가 약간 북쪽을 향하여 아라비아 북부를 지나가고 메소포타미아 전역과 투르케스탄까지 이르는 지역이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문명이 정착되는 데 있어서는 기후가 중대한 요소였다.

81:1.2 (900.4) 아담-사람들의 초기 이주를 막은 것은 북부 아프리카와 서부 아시아에서의 기후와 지형이 크게 변하였기 때문이었는데, 확대되는 지중해로 인하여 그들이 유럽으로부터 오는 것이 막히면서 그리고 이주하는 물결의 방향을 북동쪽으로 전환하면서 투르케스탄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러한 육지의 융기와 그에 연관된 기후 변화가 완료된, 기원전 15,000년경에는,

문명이 이미 전 세계적인 궁지에 몰려 있었는데, 서쪽으로는 유럽에서 확대되는 삼림에 의해서 동쪽으로는 아시아에서 산들로 인해 여전히 갇힌 채로 있는 안드-사람들의 문화적 효소와 생물학적 보존물만이 예외였다.

81:1.3 (900.5)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다른 모든 수고들은 허사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유라시아 사람들은 사냥을 포기하고, 보다 발전된 가축을 기르는 일과 농사짓는 일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변화는 느리게 일어날 수 있지만, 무시무시한 영향력이다.

81:1.4 (900.6) 초기에 농경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대개 노예들을 부렸기 때문에, 전에는 농부들이 사냥꾼과 목동들로부터 천대를 받았었다. 땅을 일구는 일은 오랫동안 천한 일로 여겨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땅을 경작하는 것을 하나의 저주로 여기기도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모든 축복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심지어는 카인과 아벨의 시대에도, 양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것이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중되었다.

81:1.5 (900.7) 사람은 대개 사냥꾼으로부터 목축을 하는 시대를 거쳐 농부로 진화하였으며, 이러한 일들이 안드-사람들

속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지만, 더욱 빈번하게는 기후의 변화에 따른 강압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모든 부족들이 사냥꾼으로부터 성공적인 농부로 직접 바뀌게 하곤 하였다. 그러나 사냥하는 일로부터 농업으로 즉각 옮겨가는 현상은, 보라색 인종과 상당히 높은 정도로 혼합된 지역에서만 발생되었다.

81:1.6 (901.1) 진화적인 민족들(특히 중국인들)은, 우연히 수분을 머금은 씨앗으로부터 또는 죽은 사람을 위하여 무덤에 넣어 두었던 씨앗으로부터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씨를 뿌리고 곡식을 재배하는 방법을 일찍부터 배웠다. 그러나 남서부의 아시아 전역에서는, 비옥한 강바닥과 인근의 평야 지대를 따라, 안드-사람들이 자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개선된 농업 기법을 실행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조상들은 두 번째 동산의 경계 지역에서 주로 농사를 짓고 원예를 돌보는 일에 종사하였었다.

81:1.7 (901.2) 아담의 후손들은 동산에서 개량된 그대로 메소포타미아 상부 경계 지역의 고원 지대 전역에서, 수천 년 동안 밀과 보리를 재배하였다. 아담과 아담아들의

후예들은 이곳에서 만나고 거래하였으며 허물없이 어울렸다.

81:1.8 (901.3) 생활 조건에 있어서의 이러한 강제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인간 종족 중 그러한 높은 비율이 잡식 실천 관행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밀과 쌀 그리고 채소를 가축으로부터 나온 고기와 섞어 먹음으로써, 고대의 이 민족들은 건강과 활력에 있어서 큰 진보를 이룩하였다.

제 2 장. 문명의 도구

81:2.1 (901.4) 문화는 문명의 수단들의 발전에 입각하여 성장한다. 사람이 야만인의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면서 활용하였던 도구들은, 보다 높은 임무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힘을 덜 사용하는 정도만큼 효력이 있었다.

81:2.2 (901.5) 사회적인 관련사들에 있어서 진보가 시작되고 문화가 꽃피기 시작한 현대적인 상황 속에서 살고 있고, 사회와 문명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이 실재적으로 거의 없는 너희들은, 초기의 너희 조상들이 사려 깊은 반성과 사회에 관한 판단에 헌신할 수 있는 여가가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81:2.3 (901.6) 인간 문명에 있어서 가장 크게 발전된 네 가지는:

81:2.4 (901.7) 1. 불을 다룰 수 있게 됨.

81:2.5 (901.8) 2. 동물을 길들임.

81:2.6 (901.9) 3. 포로들을 노예화 함.

81:2.7 (901.10) 4. 사유 재산.

81:2.8 (901.11) 불이 최초의 위대한 발견이었고 결국에는 과학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원시인들에게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연적인 원인들로 인하여 평범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였다.

81:2.9 (901.12) 불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질문이 제기되자, 안돈과 부싯돌에 관한 단순한 이야기는 곧 프로메테우스가 어떻게 그것을 하늘에서 훔쳐왔는지를 설명하는 전설로 대치되었다. 고대의 사람들은 모든 자연적 현상들에 대하여 자기들의 직접적인 이해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설명을 추구하였으며, 많은 현대인들도 이러한 경향을 따르고 있다. 소위 자연적 현상이라 불리는 것들의 탈(脫)개인성화는 오랜 세월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참된 원인들을 찾기 위한 솔직하고 정직하며 용감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현대 과학이 생겨났는데: 그것은
점성술을 천문학으로, 연금술을 화학으로, 마술을
의학으로 바꾸었다.

81:2.10 (901.13) 기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작업을 완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였다. 동물을 길들임으로써 그들의 손에 살아있는
도구들을 쥐어 주었고, 지성인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짐을 나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동물들이 없었다면, 사람은 자신의 원시적인
상태로부터 후대의 문명의 차원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81:2.11 (902.1) 길들이기에 가장 적합한 동물들 대부분은
아시아에서 발견되었는데, 특별히 중앙과 남서부
지역이였다. 이것은, 세계의 다른 지역들보다 그 지역에서
문명이 빨리 발전된 이유들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동물들
대부분은 길들여지기까지 두 번의 단계를 거쳤으며, 안드-
사람 시대에 다시 길들여졌다. 그러나 개는 아주 오래 전에

청색 인종에 의해서 길들여진 이후로 계속 사냥꾼들 곁에 남아 있었다.

81:2.12 (902.2) 투르케스탄의 안드-사람들은 광범위하게 말을 길들인 첫 번째 민족이었으며, 그들의 문화가 오랫동안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였다. 기원전 5,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와 투르케스탄 그리고 중국의 농부들은 양, 염소, 젖소, 낙타, 말, 닭, 그리고 코끼리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운반용 짐승으로 황소, 낙타, 말, 그리고 들소를 이용하였다. 한 때는 사람 자신이 운반용 짐승 역할을 하였다. 청색 인종의 어떤 통치자는 자기 거류민단 안에 짐을 운반하는 사람으로 한 때 10만 명을 둔 적이 있었다.

81:2.13 (902.3) 노예를 삼고 땅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관습은 농업과 함께 발전되었다. 노예 제도는 주인의 생활수준을 높여주었고 사회적인 교양을 위해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제공하였다.

81:2.14 (902.4) 야만인은 자연의 노예이지만, 과학적인 문명은 인류에게 서서히 점점 더 많은 해방을 수여하고 있다. 동물, 불, 바람, 물, 전기,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에너지

자원들을 통하여, 사람은 끊임없이 수고해야만 하는 필요성으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방시킬 것이다. 기계류의 풍성한 발명에 의해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병폐에 상관없이, 그러한 기계 발명으로부터 얻어지는 궁극적인 유익은 측량하지 못할 만큼 크다.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롭고도 더 나은 방법을 상상해 낼 수 있는 여가 시간을 갖게 되기까지, 문명은 번영을 이룩할 수 없으며, 그 가능성보다 훨씬 뒤진 상태에 있을 것이다.

81:2.15 (902.5) 사람은 처음에는 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이용하여 주거지를 삼았는데, 암봉(岩棚) 밑에서 살거나 동굴 속에 거주하였다. 그 다음에는 나무와 돌과 같은 자연물을 이용하여 가족을 위한 오두막을 지었다. 마지막으로 집 건물을 새롭게 짓는 단계에 들어갔는데, 벽돌 또는 다른 건축 재료들을 만드는 방법을 익혔다.

81:2.16 (902.6) 투르케스탄 고원지대의 사람들은 나무로 자기들 집을 짓는 비교적 현대적 최초의 종족이었는데, 그 집들은 아메리카를 개척한 정착민들이 만든 초기의 통나무집과 흡사하였다. 평야 지대에 세워진 모든 사람들의 거주지는

벽돌로 지어졌으며; 나중에는 불에 구운 벽돌이 이용되었다.

81:2.17 (902.7) 더 옛날에 강가에 살던 종족들은 긴 막대기들을 둥근 모양을 이루도록 땅에 박은 다음; 꼭대기는 서로 모아져서, 오두막을 위한 뼈대를 이루었는데, 가로지르는 갈대들로 엮갈리게 짜서 전체적인 모양은 큰 바구니를 엮어놓은 것과 흡사하였다. 이러한 구조물은 그 뒤에 진흙으로 칠해졌고, 그것이 햇빛으로 마르게 된 후에는, 비가 새지 않는 매우 봉사할 수 있는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81:2.18 (902.8) 각종 바구니를 엮어 짜는 후대의 관념이 독립적으로 기원된 것은, 이러한 초기의 오두막으로부터였다. 어떤 집단에서는, 나무로 만든 뼈대에 축축한 진흙이 칠해지는 광경을 관찰함으로써 도기(陶器)를 만드는 관념이 만들어졌다. 진흙으로 뒤덮인 원시적 오두막들 중의 하나가 우연히 불에 타게 되었을 때, 도기를 불에 구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실천이 발견되었다. 옛날에 사용되던 기술들은 초기 사람들의 일상 생활로부터 부수적으로 우연히 발생된 일들로부터

유래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아담이 도래하기 전까지 진화적으로 진보하던 인류에게는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이다.

81:2.19 (903.1) 약 50만 년 전에 도기를 만드는 방법이 영주의 참모진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지만,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일은 150,000년 이상 동안 실천적으로 사라져 버렸었다. 그 만(灣)의 해안에 있었던 수메르인의 조상인 낫-사람들만이 계속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다. 도기를 만드는 기술은 아담 시대 동안에 다시 회복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보급은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막 지대의 확장과 동시에 이루어졌고,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동반구(東半球)로 퍼져나간 개선된 기법의 지속적인 물결을 통하여 확산되었다.

81:2.20 (903.2) 안드-사람 시대의 이 문명들은, 그들의 도기류 또는 다른 기술들의 단계에 의해서 항상 추적될 수는 없다. 인간 진화의 완만한 과정은 달라마시아와 에덴의 체제들에 의해서 굉장히 뒤엎혔다. 후대의 항아리들과 도구들이 순수한 안드-사람 민족들이 만든 그 이전의 생산품들보다도 더 열등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제 3 장. 도시와 제조업과 상업

81:3.1 (903.3) 기원전 약 12,000년부터 시작하여, 풍부하고
광활한 목초지로 구성된 투르케스탄의 사냥터와 방목지가
기후조건에 의해 파괴됨으로써,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유형의 산업과 천연 그대로의 제조업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길들여진 짐승
떼를 기르는 일로 돌아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농경민이
되거나 물위에 떠있는 음식물을 수집하기도 하였지만,
보다 높은 형태의 안드-사람 지성인들은 상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쪽으로 선택하였다. 단일 종목 산업의 개발에
자신들을 바치는 것이 전체 부족들의 관습이 되기도
하였다. 나일 계곡으로부터 힌두쿠시까지 그리고 갠지스
강으로부터 황하까지, 우월한 부족들의 주요 업무는 땅을
경작하는 것이 되었으며, 상업을 부업으로 겸하였다.

81:3.2 (903.4) 원료를 가공하여 다양한 상업용 물품들을 만들고
거래하는 일의 증대는, 그러한 초기의 상당히 평화로운
공동체를 조성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그
공동체는 문명의 기술과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광대한 세계 무역의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는, 사회 공동체는 부족—확대된 가족

집단들—이었다. 거래를 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교류를 나누게 되었고, 그리하여 문화가 보다 빠른 속도로 섞이도록 기여하였다.

81:3.3 (903.5) 약 12,000년 전에, 독립된 도시들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원시적인 거래와 제조업을 하는 도시들은 농업과 가축을 기르는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생활수준이 증진됨으로써 산업이 촉진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너희는 개량된 초기 도시 생활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초기의 종족들은 매우 깔끔하고 정결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순전히 먼지와 쓰레기가 쌓임으로써 원시적인 촌락은 매 25년마다 평균 1내지 2피트씩 높아졌다. 또한 이러한 옛 도시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주변의 땅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높아졌는데, 불에 굽지 않은 진흙으로 지은 그들의 오두막이 오래 지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옛 것이 허물어진 자리 위에 바로 새 집을 짓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81:3.4 (903.6) 금속의 보편적인 사용은, 초기의 산업 그리고 상업 도시들이 이루어지던 이 시대의 특징이었다. 너희는 이미 기원전 9,000년 이전으로 추정되는 청동 문화를

투르케스탄에서 발견하였으며, 안드-사람들은 쇠와 금 그리고 구리도 마찬가지로 잘 다루는 기술을 일찍부터 익히고 있었다. 그러나 비교적 진보된 문명의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상황은 매우 달랐다. 그러한 곳에는 석기와 청동기 그리고 철기 시대와 같은 뚜렷한 기간 구분이 없었다; 세 가지 모두가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존재하였다.

81:3.5 (904.1) 금은 사람들이 얻으려고 애쓴 최초의 금속이었는데; 가공하기가 쉬웠고, 처음에는 장식품으로만 사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사용된 것은 구리였지만, 주석(朱錫)을 섞어서 보다 강한 청동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청동을 만드는 방법은 투르케스탄의 아담아들-사람들 중의 하나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그들이 사는 고지대의 구리 광산이 우연히 주석 퇴적층과 가까이 위치하였기 때문이었다.

81:3.6 (904.2) 미숙한 제조업이 출현하고 산업이 시작되면서, 문화적인 문명의 보급에 있어서 상업이 신속하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육상과 해상의 무역로

개설로 인하여 여행이 크게 촉진되었고 문화의 혼합은 물론 문명의 융합이 크게 촉진되었다. 기원전 5,000년경에는, 문명화된 지역과 반(半)문명화된 지역 전체에서 말이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 이러한 후대의 종족들은 길들여진 말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짐마차와 전차(戰車)들을 갖추고 있었다. 오래 전에, 바퀴가 사용되었지만, 이때에는 운송 매체가 그렇게 갖추어져서 상업과 전쟁에 널리 이용되게 되었다.

81:3.7 (904.3) 다른 모든 영향력들이 합쳐진 것보다도, 여행하는 상인과 방랑하는 탐험가가, 역사상의 문명에 더 많은 진보를 이룩하였다. 후대의 종교들에 의해서 조성된 군사적 정복과 식민지화 그리고 선교사 체계 역시 문화를 보급시키는 요인들이 되었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급속도로 개발되는 기술과 산업 과학에 의해서 계속 속도가 빨라진 무역관계 다음 가는 2차적인 것이었다.

81:3.8 (904.4) 아담의-혈통이 인간 종족들 속으로 주입됨으로써, 문명의 속도가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모험을 향한 그들의 성향을 크게 자극시키고 세상 끝까지 탐험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 대부분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안드-사람 후손들에 의해서 점유되었다.

제 4 장. 혼합된 종족들

81:4.1 (904.5) 역사 시대가 시작될 무렵에 이르러서는, 유라시아 전역과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태평양의 섬들은 혼합된 인류 종족들로 온통 뒤덮이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종족들은 유라시아의 5가지 기본적인 인간 혈통들이 섞이고 다시 섞임으로써 형성되었다.

81:4.2 (904.6) 각각의 유라시아 종족들은 어떤 특색 있는 육체적 특징들에 의해서 정체성이 확인된다. 아담-사람들과 낫-사람들은 머리가 길며; 안돈-사람들은 머리가 넓다. 산각 종족들은 중간 정도의 머리를 갖고 있고, 황색 인종과 청색 인종은 머리가 넓은 경향이 있다. 청색 인종은, 안돈-사람의 혈통과 섞이게 되었을 때, 뚜렷하게 넓은 머리를 갖게 되었다. 2차 산각 종족들은 중간 또는 긴 머리를 갖고 있었다.

81:4.3 (904.7) 비록 이러한 두개골 규모들이 종족의 기원을 해독하는 데 있어서 봉사할 수 있기는 하지만, 골격 전체가

훨씬 더 신뢰할 만하다. 유란시아 종족들의 초기 발전에는
기원적으로 다섯 가지 다른 유형의 골격 구조가 있었다:

81:4.4 (904.8) 1. 안돈계열, 유란시아 최초의 형태.

81:4.5 (904.9) 2. 1차 산각, 적색과 황색 그리고 청색 인종.

81:4.6 (904.10) 3. 2차 산각, 오렌지색과 녹색 그리고 남색 인종.

81:4.7 (904.11) 4. 낫-사람들, 달라마시아인 들의 후손.

81:4.8 (904.12) 5. 아담-사람들, 보라색 인종.

81:4.9 (904.13) 이러한 다섯 가지의 큰 종족 집단들이 광범하게
서로 섞였는데, 혼합이 계속될수록 산각의 유전적
지배력에 의해서 안돈-사람 유형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었다. 라플란드 사람들과 에스키모들은 안돈-사람과
산각-청색 인종이 혼합된 종족들이다. 그들의 골격 구조는
기원적인 안돈의-유형과 거의 근접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담-사람들과 낫-사람들은 다른 종족들과 너무도 심하게
섞였기 때문에, 일반화된 코카서스 인종 계층으로 발견될
수 있을 뿐이다.

81:4.10 (905.1)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지나간 2만 년 전의 인간 유골들이 발견되더라도, 다섯 가지의 원형들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골격 구조의 연구는, 인류가 현재 대략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을 밝혀주게 될 것이다:

81:4.11 (905.2) 1. 코카서스 인종—안드-사람이 낫-사람과 아담의-혈통들과 섞이고, 나아가서는 1차 그리고 (약간의) 2차 산직 혼합 혈통에 의해서 그리고 상당히 많은 안돈의-교배에 의해서 변형되었음. 서방의 백색 인종들과 약간의 인도인들 그리고 우랄알타이 어족(語族)의 민족들이 이 집단에 포함된다. 이 계열의 통합하는 요소는 안드-사람 유전자가 아주 많든지 또는 아주 적든지 하는 것이다.

81:4.12 (905.3) 2. 몽고 인종—기원적인 적색과 황색 그리고 청색 인종들을 포함하는 1차 산직 유형. 중국인들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여기에 속한다. 유럽에서는 몽고 인종 유형이 2차 산직과 안돈의-혼혈에 의해서 변형되었다; 안드-사람이 주입됨으로써 더욱 변형되었다. 말레이 사람과, 다른 인도네시아 인종들은, 높은 비율의 2차 산직 혈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열에 속한다.

81:4.13 (905.4)

3. 흑인종—기원적으로 오렌지색과 녹색 그리고 남색 인종을 포함하는 2차 산각 유형. 이것은 흑인에 의해서 가장 잘 예증되는 유형이며, 아프리카와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발견되고 2차 산각 종족이 위치한 모든 지역에서 발견된다.

81:4.14 (905.5)

북부의 중국에서는 코카서스 종족과 몽고 종족 유형이 섞인 어떤 혼혈이 있고, 레반트 지역에서는 코카서스 종족과 흑종족이 서로 섞였으며; 인도에서는 남아메리카처럼 세 가지 유형들이 모두 나타난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세 가지 유형의 골격 특징들이 여전히 존속되고 있으며 지금-현재 인간 종족들의 후대 조상들을 정체성 확인하는 일에 도움을 준다.

제 5 장. 문화적 사회

81:5.1 (905.6)

생물학적 진화와 문화적 문명이 반드시 상관관계될 필요는 없으며; 어느 시대든지 유기체적 진화는 문화적 쇠퇴의 바로 한가운데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 역사의 긴 기간들을 조사해 보면, 결국에는 진화와 문화가 인과관계로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진화는 문화가 없는 곳에서도 진행될

수 있지만, 문화적 문명은 인종적인 발달이 선행되는 충분한 바탕이 없이는 번창하지 않는다. 아담과 이브는 인간 사회의 진보와 상관없는 문명의 기술을 소개하지 않았지만, 아담의-피는 종족들의 천부적인 능력을 증강시켜 주었고 경제적 발전과 산업 진보의 속도를 가속화 시켰다. 아담이 증여됨으로써 종족들의 두뇌 힘이 향상되었고, 그럼으로써 자연적인 진보의 진행이 촉진되었다.

81:5.2 (905.7) 농업과 동물 길들이기 그리고 개선된 고안건축물을 통하여, 인류는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 가운데 최악의 것을 점차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무엇으로 삶의 과정을 상쾌하게 만들 것인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궁리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안락함을 누리는 보다 높은 그리고 계속 높아지는 표준을 위하여 분투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사람은 제조업과 산업을 통하여 필사자 삶의 유쾌한 만족감을 점차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81:5.3 (906.1) 그러나 문화적인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운 구성원으로 그리고 총체적인 평등으로 그 속에서

태어나도록 상속받는 특권을 가질 만큼 훌륭하고 인정 많은 단체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귀하고도 영원히 진보하는 조합과 같은데, 이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어서 그 속에서 자기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후세에 생활하고 전진해 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하여 숭고하게 분투하는 사람들만이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문명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비싼 요금이 부과되는데, 엄하고 혹독한 단련이 강요되고, 모든 반대자들에게는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는 반면, 사회의 일반적인 위험과 인종적인 위험에 대항하기 위한 증강된 안전 보장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자유나 특권은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81:5.4 (906.2) 사회적인 관계적-연합은, 인간 존재들이 그 동안 배워온 것이 유익하다는, 생존을 위한 대비책의 한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별존재들은, 이러한 증대된 집단적 보호를 위한 반대급부로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자아-희생과 개인적-해방의 삭감이라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지금-현재의 사회적 기능구조는, 인간 종족의 초기 체험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혹독하고도 반(反)사회적인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반대하는 어느 정도의 보장과 보호가 잘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행착오적 대비책이다.

81:5.5 (906.3) 그래서 사회는, 관습을 통한 시민의 자유와, 자본 그리고 발명을 통한 경제적 자유와, 문화를 통한 사회적 해방, 그리고 치안 규정을 통한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협조적 조직이 되어간다.

81:5.6 (906.4) 권력이 권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이어지는 각 세대에서의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권리들을 강요한다. 정부의 우선적인 임무는 권리에 대해 정의(定意)를 내리고, 계층들 사이의 차이에 대한 정당하고 공정한 규정을 제정하며, 법이 정하는 규칙에 의거하여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각 개인의 권리는 사회적인 임무와 결합되어 있다; 집단의 혜택은, 집단의 봉사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을 충분히 지불할 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보호기능구조이다. 그리고 집단의 권리들은, 개별존재의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성(性) 성향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반드시 보호되어야만 한다.

81:5.7 (906.5) 집단적 규정에 종속되는 자유는 사회적 진화의 합리적인 목표이다. 제한이 없는 자유는, 불안정하고 경솔한 인간 마음의 헛되고 공상적인 환상에 불과하다.

제 6 장. 문명의 유지

81:6.1 (906.6) 생물학적인 진화가 계속해서 상승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반면, 문화적 진화의 대부분은 물결을 이루면서 유프라테스 계곡으로부터 밖으로 퍼져 나갔고, 그 물결은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약화되어 마침내는 순수-혈통을 가진 아담의-후대 전체가 흩어져서 아시아와 유럽의 문명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종족들의 피가 충분히 섞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문명은 상당한 정도로 혼합되었다. 문화는 서서히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이 문명은 반드시 유지되고 육성되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날에는 새로운 문화 자원, 문명 진화의 느린 발전을 고무시키고 자극할 그 어떤 안드-사람들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81:6.2 (906.7) 현재 유란시아에서 진화하고 있는 문명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서 자라났고 현재에도 그것에 입각하고 있다:

81:6.3 (906.8)

1. 자연 환경. 물질문명의 성질과 범위는 이용 가능한 자연 자원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 문화의 진화에 있어서, 기후와 날씨 그리고 수많은 물리적 조건들이 요인이 된다.

81:6.4 (907.1)

안드-사람 시대가 시작될 때, 광대하고 비옥한 무방비 상태의 사냥터가 전 세계적으로 두 군데 있었다. 하나는 북아메리카였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퍼져 있었다; 다른 하나는 투르케스탄의 북부에 있었고 안돈 자손과 합쳐진 황색 인종이 부분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남서부 아시아에 있는 우월한 문화의 진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인종과 기후였다. 안드-사람들은 위대한 민족이었지만, 그들의 문명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요인은 이란과 투르케스탄 그리고 신경 지역이 점점 더 건조한 지대로 변하는 것이었는데, 그로 인하여 그들은 줄어드는 비옥한 땅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롭고도 발전된 방법을 발명하고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81:6.5 (907.2)

대륙의 지형과 땅의 분포에 따른 다른 상황들은, 평화와 전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북아메리카—실천적으로 온 사방이 광대한 해양으로 보호된 곳—에 있는 민족들이 누렸던 것만큼, 곤란을 받지 않고 계속적인 유리한 발전 기회를 가졌던 유란시아인들은 거의 없다.

81:6.6 (907.3) 2. 자본재(資本財). 빈곤한 상황 속에서는 문화가 발전될 수 없으며; 여가 시간은 문명 진보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갖는 개별존재 성격은 물질적인 풍요함이 없이도 획득될 수 있지만, 문화적 문명은 열망과 병합된 여가 시간을 육성시키는 물질적 번영이라는 조건이 만족될 때에만 조성될 수 있다.

81:6.7 (907.4) 원시 시대 동안, 유란시아에서의 생활은 심각하고도 냉정한 일이었다. 그리고 인류가 열대지방의 쾌적한 기후 쪽으로 이동하려는 지속적인 경향은 끊임없는 투쟁과 끝없는 고생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거주지에서의 이들 비교적 따뜻한 지역은 실존을 위한 격렬한 투쟁으로부터 어느 정도 감면을 잘 제공하였지만 반면, 그렇게 편안함을 추구한 종족들과 부족들은 노력하지 않고 얻은 여가 시간을 문명의 진보를 위해서는 거의 활용하지 못하였다. 사회적인 진보는

반드시, 힘을 덜 들이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그 땅으로부터 어떻게 생명을 유지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힘으로 획득한 유익한 남은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방법을, 자신들의 지능적인 수고에 의해서 터득한, 그 종족들의 생각과 계획으로부터 발생된다.

81:6.8 (907.5) 3. 과학적 지식. 문명의 물질적인 측면은 언제나 반드시 누적된 과학적인 자료를 필요로 한다. 사람이 물과 바람을 동력으로 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전에 힘을 이용할 목적으로 동물을 활용하는 방법과 활과 화살을 이용하는 방법을 발견한 때로부터, 증기와 전기를 활용하게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문명의 수단들은 서서히 개선되었다. 옷감을 짜고 도기를 제작하며 동물들을 길들이고 금속을 가공한 후에, 글을 쓰고 인쇄하는 시대가 뒤따랐다.

81:6.9 (907.6) 지식은 힘이다. 발명이 이루어진 후에야 문화 발전이 전(全)세계적으로 가속화되기 마련이다. 과학과 발명은 특히 인쇄 출판물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모든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활동들의 상호 작용은 문화적 발달 정도를 엄청나게 가속화 시켰다.

81:6.10 (907.7) 과학은 사람으로 하여금 수학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말하도록 가르치며, 전체적으로 정확성을 요구하도록 사람의 생각을 훈련시킨다. 그리고 또한 과학은 실수를 제거함으로써 원리를 정착시키는 반면, 미신을 타파함으로써 종교를 정화시킨다.

81:6.11 (907.8) 4. 인적(人的) 자원. 인력은 문명의 보급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숫자가 많은 민족이 보다 적은 인종의 문명을 지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숫자가 증가하지 못하면 국가적인 운명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게 되지만, 어느 한계 이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자멸하게 된다. 정상적인 단위 면적당 인구 비율의 최적치를 넘을 정도로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생활수준이 저하되었음을 의미하거나, 평화적인 침투에 의해서 또는 군사적인 정복, 강제적인 점령에 의해서 영토 경계선을 즉각적으로 확대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81:6.12 (908.1) 너희는 때로 전쟁의 참혹한 피해로 인해 충격을 받기도 하지만,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발전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지구의 출생률이 그렇게 늘어남으로써 곧 인구 과다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사람이 사는 대부분의 세계들은 크기가 작다. 유란시아는 아마 평균보다 약간 작은 크기일 것이다. 국가의 인구를 적정한 수준에서 안정시킴으로써 문화를 증진시키고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 인구 성장을 멈출 것인지를 아는 나라는 현명한 나라이다.

81:6.13 (908.2) 그러나 천연 자원이 가장 풍부하고 가장 발전된 기계 장비들을 갖춘 대륙이라도 그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감퇴된다면 거의 진보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지식은 교육에 의해 소유될 수 있지만, 참된 문화에 필수적인 요소인 지혜는 오직 체험에 의해서 그리고 타고난 지능을 갖춘 남자와 여자들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그러한 국민은 체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정말로 현명하게 될 수 있다.

81:6.14 (908.3) 5. 물질적 자원의 유효성. 천연 자원과 과학적 지식과 자본재 그리고 인간의 잠재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지혜에 많은 것들이 의존한다. 초기 문명에 있어서의 주요 요소는 현명한 사회적 지배자들에 의해서 발휘되는 기세이었다; 원시인은 동시대에 살던 그들의 우월한 사람들에 의해서 문자 그대로 강제로 안겨진 문명을 갖고 있었다. 주로 잘 조직되고 우월한 소수들이 세상을 지배하였다.

81:6.15 (908.4) 권력이 정의를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역사 안에서 있어온 것이 무엇인지를 만들어낸다. 유란시아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사회가 권력과 권리의 윤리 문제에 대해 기꺼이 토론 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였다.

81:6.16 (908.5) 6. 언어의 유효성. 언어가 형성될 때까지 문명은 확산되지 못한다. 살아있고 성장하는 언어들은 문명화된 사고와 계획의 확산을 보증해 준다. 초기 시대 동안에 언어에 있어서의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오늘날에는, 진화하는 생각을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앞선 언어의 발전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언어는 집단들의 관계적-연합으로부터 진화되었는데, 각각의 작은 집단들은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체 체계를 갖고 있다. 언어는 몸짓, 손짓, 울음소리, 흉내 내는 음성, 억양, 그리고 강약을 통하여 발전하고 나중에는 알파벳이 유성음으로 되기까지 이른다. 언어는 사람의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봉사할 수 있는, 사고하는 도구이지만, 사회 집단들이 어느 정도의 여가 시간을 갖게 되기 전에는 번창하지 않는다. 언어를 구사하려는 성향이 새로운 말—속어—를 개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속어를 사용하게 되면, 관습이 그것을 언어화한다. 사투리들의 기원은 어느 가족 집단에서 발견되는 “아기의 말투” 속에 있는 다양함에 의해서 설명된다.

언어의 차이는 평화의 확장에 큰 장애가 되어 왔다. 문화가 종족 전체에, 대륙 전체에, 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언어의 정복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진다. 보편적인 언어는 평화를 증진시키고 문화를 지켜주며, 행복을 증강시킨다. 세계의 언어들이 몇 개로 줄어들 수만 있어도, 뛰어난 문화 민족들이 이것들을 숙달함으로써 세계적인 평화와 번영에 힘차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81:6.19 (908.8)

국제적인 언어가 개발되는 면에서는 유란시아에서 거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제적인 상업적 교류의 수립에 의해서 많이 성취되어 왔다. 언어, 상업, 예술, 과학, 경쟁적인 시합, 또는 종교 등 어떤 면에서든지, 이러한 모든 국제적 관계들이 육성되어야만 할 것이다.

81:6.20 (909.1)

7. 기계 장치들의 유효성. 문명의 진보는 도구들과 기계들 그리고 보급 통로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개선된 도구들,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기계들이 진보하는 문명의 경기장 안에서 경쟁하고 있는 집단들의 생존 여부를 결정한다.

81:6.21 (909.2)

초기 시대에는, 땅을 경작하는 데 이용되는 유일한 에너지는 인력이었다. 사람 대신에 소를 이용하는 것은, 이것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왔다. 최근에는 기계가 사람들 대신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발전들은 모두 사회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는데, 왜냐하면 인력을 해방시켜서 보다 가치 있는 임무를 성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81:6.23 (909.3) 지혜에 의해서 인도되는 과학은 사람을 사회적으로 크게 해방시켜준다. 그 지적 차원이 너무 낮아서, 노동을 절감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기계가 너무 빨리 발명됨으로써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대량의 고용 감소에서 야기되는 과도기적 난국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만큼 현명한 방법과 확실한 기법을 발견하지 못하는 나라의 경우에만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계 시대가 입증할 수 있다.

81:6.23 (909.4) 8. 계몽가의 성격. 사회적인 유산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보다 앞선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전체적인 문화와 지식에 무엇이든지 기여한 모든 사람들과 어깨를 겨룰 수 있게 해준다. 문화적인 횃불을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이러한 작업 속에서, 가정은 언제나 기본적인 교육장소가 될 것이다. 오락과 사교적인 삶이 그 다음에 오고, 학교가 마지막 순서이지만 복잡하고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에서는 똑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다.

81:6.24 (909.5) 곤충들은 삶—정말로 매우 한정적이고 순전히 본능적인 실존—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되고 준비를 갖춘 상태로 태어난다. 갓난아기는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린 세대를 교육적인 훈련을 통제함으로써, 문명의 진화적 경로를 크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81:6.25 (909.6) 문명 촉진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20세기의 가장 큰 영향은, 세계적인 여행의 괄목할만한 증가와 교통 수단의 놀라운 향상이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의 향상은, 사회적 구조의 확대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 역시 훨씬 더 순수한 지적인 계통들과 과학적인 계통들이 성장하는 정도와 대응되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문명은 영적인 개발과 가정교육 기관의 보호에 있어서 정지 상태에 있다.

81:6.26 (909.7) 9. 인종적인 이상들. 한 세대의 이상들은 직계 후손을 위한 운명적 경로를 개척한다. 사회적 계몽가의 본질특성은 문명이 전진할 것인지 아니면 후퇴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어느 한 세대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는 다음에 계속되는 세대의 성격 경향을 미리 결정한다. 어느 종족 또는 국가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추진력이 주로 그 문명의 문화 속도를 결정한다.

81:6.27 (909.8) 이상은 사회적 흐름의 근원을 들어올린다. 그리고 그 어떤 흐름도 어떤 기법의 압력이 가해지든지 또는 어떤 기법의 방향 통제가 사용되든지 간에, 그 근원보다 조금도 높아질 수는 없을 것이다. 문화적 문명의 대부분의 물질적인 양상들조차도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힘은 공동체의 성취에서 가장 물질 성향이 적은 것 안에 내재하고 있다. 지성은 문명의 기능구조를 통제할 수 있고, 지혜는 그 방향을 지도할 수 있지만, 영적 이상주의는 인간 문화를 실제로 달성의 어느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상승시키고 향상시키는 에너지이다.

81:6.28 (910.1) 처음에는 삶이 실존을 위한 투쟁이었지만; 지금은 생활수준을 위한 투쟁이다; 다음에는 인간 실존의 도래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목표인 생각의 본질특성을 위한 투쟁이 될 것이다.

81:6.29 (910.2) 10. 전문가들의 조화-협동. 문명은 초기의 분업에 의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전문화되는 결과에 의해서 엄청나게 진보되었다. 문명은 이제 전문가들의 효과적인 조화-협동에 의존한다. 사회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들을 단결시키는 어떤 방법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사회와 예술 그리고 기술과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은 기술과 솜씨에 있어서 계속해서 증대되고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조화-협동과 협력의 효과적인 수단들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다양화된 재능과 다변화된 고용은 결국에는 인간 사회를 약화시키고 집대성을-해체할 것이다. 그러한 발명과 그러한 전문화를 이룩할 수 있는 지성은, 빠른 속도의 발명과 가속화된 속도의 문화 팽창에 의해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적절한 방법들을 고안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11. 일자리를 찾아주는 장치들. 다음 세대의 사회적 발전은, 계속 증가되고 확대되는 전문화에 대한 보다 훌륭하고 보다 효과적인 조화-협동과 협력 속에서 체현될 것이다. 그리고 분업이 점점 더 심화될수록, 개별존재들로 하여금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어떤 기법이 고안되어야만 한다. 유란시아의 문명화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직 기계만이 실업의 원인은 아니다. 경제적인 복잡성과 산업적이고 전문적인 전공 분야가 계속 늘어남으로써 노동자를 배치하는 문제들이 부가되었다.

81:6.32 (910.5) 사람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복잡한 사회에서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효과적인 방법들도 역시 제공되어야만 한다. 시민들에게 고도의 전문화된 기법을 생활 방편으로 훈련시켜주기 전에, 그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일반적인 노동이나 장사 또는 직업을 훈련시킴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전문화된 직업에서 과도기로 실직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실직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오랫동안 보호한다면 어떤 문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최고 수준의 시민들이라도 공공 금고로부터 보조를 받게 되면 조만간에 비뚤어지고 문란하게 될 것이다. 사적인 자선조차도, 신체가 건강한 시민들에게 오래 제공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81:6.33 (910.6) 그러한 고도의 전문화된 사회는 옛 사람들의 오래 된 자치 단체적 그리고 봉건적 실천 관행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대부분의 평범한 봉사들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고 유익하게 사회화될 수 있지만, 고도로 훈련되고 과도하게 전문화된 인간 존재들은 지능적으로 협력하는 어떤 기법에 의해서 최대한 관리될 수 있다. 현대화된 조화-협동과 형제우애에서의 규정은,

힘에 바탕을 둔 공산주의 또는 독재적인 규제적 제도들의
오래되고 더욱 원시적인 방법보다, 더욱 오래-살아있는
협력을 낳을 것이다.

81:6.34 (910.7) 12. 기꺼이 협력하려는 의지. 인간 사회의 진보를
크게 방해하는 것들 중의 하나는, 비교적 크고 더욱
사회화된 인간 집단들과 그리고 반(反)사회적-마음을 지닌
개개의 개별존재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반대하는-마음을
지닌 반(反)사회적인 비교적 작은 인류 관계적-연합에서의
이익과 복지 사이의 충돌이다.

81:6.35 (910.8) 교육적 방법과 종교적 이상(理想)이 높은 유형의
애국심과 국가적인 헌신을 고취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국가적 문명도 오래 견딜 수 없다. 이러한 종류의 지능적
애국심과 문화적 단결이 없다면, 편협한 질투심과
지역적인 자아-이익의 결과로 모든 나라들은 집대성이-
해체되는 경향이 있다.

81:6.36 (911.1) 세계적인 문명의 유지는, 인간 존재들이 서로
평화와 형제우애관계로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는 데 달려
있다. 효과적인 조화-협동이 없다면, 산업 문명은 과도한

전문화의 위험성 즉: 단조로움과 협소함 그리고 의심과 질투를 일으키려는 성향 때문에 위태롭게 될 것이다.

81:6.37 (911.2) 13.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영도자관계. 문명 안에서, 많은 매우 많은 것이, 열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짐을-잡아당기는 영에 달려있다. 만약에 열 사람이 함께—모두가 동시에 같이—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 들어 올리는 것보다도 나을 것이 없다. 그리고 그러한 단체 작업—사회적 협동—은 영도자관계에 달려있다. 과거와 현재의 문화적 문명들은, 시민들이 지혜롭고도 진취적인 영도자들과 지능적으로 협동한 것에 기초를 두어 왔다; 그리고 사람이 더 높은 차원으로 진화하기까지는, 문명은 지혜롭고 활력 있는 영도자관계에 계속 의존될 것이다.

81:6.38 (911.3) 고도로 발달한 문명들은, 물질적인 재산, 지적인 탁월성, 도덕적 가치, 사회적인 슬기, 그리고 조화우주 통찰력의 현명한 상호 관계로부터 탄생된다.

81:6.39 (911.4) 14. 사회적인 변화들. 사회는 신성한 제도가 아니라, 진보적인 진화의 한 현상이다; 향상하는 문명은, 그 영도자들이 사회 조직에 있어서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항상 지연되는데, 그 변화는 그 시대의 과학적인 발전과 속도를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시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관념이 색다르고 새롭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채택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81:6.40 (911.5) 사람은 사회라고 하는 기능구조를 실험해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한다. 그러나 문화적 조절에서의 이러한 모험들은 사회적 진화의 역사에 충분히 정통한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자들은 심사숙고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실험의 권역에 실천적인 체험을 갖고 있는 지혜자로부터 조언을 항상 받아야만 한다. 어떤 위대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변화라도 갑작스럽게 시도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시간은 모든 유형의 인간적 조절—물리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오직 도덕적이고 영적인 조절들만이 순간적인 자극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이러한 것들도 그것들의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반향이 충분히 작동되기까지는 시간의 경과가 요구된다. 문명이 어느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는 도중에 있을 때, 그 민족의 이상(理想)들은 위험한 기간 동안 최고의 후원과 확실성을 제공한다.

81:6.41 (911.6) 15. 과도기적 붕괴의 방지. 사회는 여러 시대에 걸친 시행착오를 통해 탄생된다; 행성 상태에 있어서 동물의 차원으로부터 인간의 차원으로 인류가 오랜 세월에 걸쳐 상승한 연속적인 단계들 속에서 선택적인 조절들과 재(再)조절들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것이다. 어떤 문명이든지 해당되는 큰 위험은—어느 순간이든지—이미 확립된 과거의 방법으로부터 새롭고도 더 나은 그러나 시도된 적이 없는 미래의 과정으로 옮겨가는 과도기 기간 동안에 붕괴되는 징후이다.

81:6.42 (911.7) 영도자관계는 진보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선견지명은 나라들이 지탱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들이다. 문명은 유능한 영도자관계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까지는 실제로 위태롭게 되는 경우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자질을 갖춘 현명한 영도자관계들은 그 인구의 1퍼센트를 결코 넘지 않는다.

81:6.43 (911.8) 그리고 문명이 20세기의 급속하게 팽창되는 문화에서 절정을 이루어 온 그러한 힘찬 영향력이 개시될 수 있는 지점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진화의 사다리에 걸쳐있는 이러한 가로대 때문이었다. 그리고 사람은 오직 이러한 필수 요소들에 밀착함으로서, 지금-현재의 자기 문명들을 유지하고 한편으로 그것들의 계속되는 발전과 확실한 생존이 제공되도록 희망할 수 있다.

81:6.44 (912.1) 이것이야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담 시대 이후로 문명을 건설하기 위하여 길고 긴 세월 동안 투쟁한 것에 대한 개요이다. 지금-현재의 문화는 이러한 분투적인 진화의 순수한 결과이다. 인쇄술이 발견되기 전에는, 진보가 비교적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조상들이 성취한 것들로부터 어느 한 세대가 빨리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문명이 투쟁해 온 모든 시대들의 누적된 추진력의 효과를 등에 업고 인간 사회가 앞으로 돌진해 나가고 있다.

81:6.45 (912.2) [네바돈의 천사장에 의해서 후원됨]

제 82 편 결혼의 진화

82:0.1 (913.1)

결혼—짝짓기—은 남녀의 양성(兩性)에서 생겨난다. 결혼은 그러한 양성(兩性)에 맞추려는 사람의 반응적인 조절인 반면, 가정생활은 그러한 진화적이고 적응할 수 있는 모든 조절로부터 발생된 전체적인 결과이다. 결혼은 영구적인 것이다; 생물학적 진화 속에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회적 진화의 기초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실존할 것이 확실하다. 결혼은 인류에게 가정을 제공하였고, 가정은 길고도 험한 진화적 투쟁 전체의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다.

82:0.2 (913.2)

종교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교육적인 관습들은 모두 문화적 문명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것들인 반면, 가정은 문명을 일으키는 주인이다. 어린아이는 기본적인 생활의 대부분을 자기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배운다.

82:0.3 (913.3)

옛 시대의 인간들은 매우 풍부한 사회적 문명을 소유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이 소유했던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신실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러한 과거의 문명들 대부분이 다른 제도적 영향들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도 계속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었음을 알아야만 한다. 오늘날 인간들은 풍부한 사회적 유산과 문화적 유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현명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만 한다. 교육 기관으로서의 가정은 계속 유지되어야만 한다.

제 1 장. 짝을 맺는 본능

82:1.1 (913.4) 남자들과 여자들의 개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性)에 대한 욕망은 인류를 재생산하기 위하여 함께 합쳐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하다. 이 본능은 나중에 사랑과 헌신 그리고 부부간의 충절이라고 불리게 된 것들의 대부분을 인간들이 체험하게 되기 훨씬 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짝을 짓는 것은 타고난 성향이며, 결혼은 그것의 진화적인 사회적 반향(反響)이다.

82:1.2 (913.5) 성에 관한 흥미와 욕망은 원시 민족들에 있어서 지배적인 열정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단순하게 여겼다. 모든 재생산하는 번식적인 체험은 상상을 일으키는 치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매우 높게 문명화된 사람들의 모든 것을-흡수하는 성(性)에 관한 열정은, 주로 종족의 혼합으로 인한 것이며, 특히 늦-

사람과 아담-사람에서의 연관을 이루려는 상상력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평가에 의하여, 진화적인 본성이 자극되어온 곳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이 안드-사람 유전자가 진화적인 종족들에 의해서 너무나 제한된 분량만 흡수되었기 때문에, 동물적 열정에 대한 충분한 자아-통제를 제공하는 데에 실패하였고, 그리하여 더욱 예민한 성(性) 의식(意識)과 더욱 강력한 짝짓기 충동이라는 부여된-자질로써 재촉되고 자극되었다. 진화적인 종족들 중에서, 적색 인종이 가장 높은 성(性) 규범을 소유하였다.

82:1.3 (913.6) 결혼과 관련된 성(性)에서의 규정은 다음을 가리킨다:

82:1.4 (913.7) 1. 문명의 상대적인 진보. 문명은 유용한 통로로서 그리고 사회관례에 따라서 성(性)이 충족되기를 점점 더 요구한다.

82:1.5 (914.1) 2. 각 민족 속에 있는 안드-사람 혈통의 분량. 성(性)은 그러한 집단들 사이에서, 물리적 및 정서적 자연본능 모두에서의 가장 높은 것과 낮은 것 모두를 표현하는 것이 되어왔다.

82:1.6 (914.2) 산악 종족들은 정상적인 동물적 열정을 갖고 있었지만, 상대되는 이성(異性)에 대한 아름다움과 육체적 매력을 상상하거나 깊이 감상하는 능력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성(性) 매력이라 불리는 것은 지금-현재의 원시 종족들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섞이지 않은 종족들은 한정적인 교미 본능은 갖고 있지만, 사회적인 통제를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충분한 성적 이끌림은 느끼지 못한다.

82:1.7 (914.3) 짝짓기 본능은 인간 존재들의 가장 유력한 육체적 추진력이다; 그것은 이기적인 사람을 개별 충족을 구실로, 의무로부터의 개인적인 해방과 개별적인 안락함보다도 훨씬 높은, 인종적 복지와 영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교묘히 속이는 하나의 감정이다.

82:1.8 (914.4) 하나의 관습으로서의 결혼은, 그것이 시작된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아-영속을 위한 생물학적 성향의 사회적 진화를 묘사한다. 진화하는 인간 종족들의 영속은 이러한 인종적 교미 충동, 성적 끌어당김이라고 막연하게 불리는 충동의 현존에 의해서 확인된다. 이러한 심한 생물학적 충동은 모든 종류의 연관된 본능과 감정

그리고 관습—육체적, 지적, 사회적—을 향한 자극 중추가 된다.

82:1.9 (914.5) 야만인들에게 있어서는, 양식 공급이 추진하는 동기가 되었지만, 문명이 풍부한 양식을 보장하게 되자, 성(性) 충동이 자주 지배적인 충동이 되었으며 그리하여 사회적인 규칙이 계속 성립되었다. 동물의 경우에는, 본능적인 주기가 교미 성향을 규제하지만,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자아-통제 능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적 욕망은 전혀 주기성을 갖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개별존재들에게 자아-통제를 강요할 필요가 있게 된다.

82:1.10 (914.6) 억제되지 않고 방임된 상태에서는, 어떤 인간적 감정이나 충동도 이러한 성적 충동의 힘보다 더 위험하고 불행한 것은 없다. 이러한 충동을 사회의 규정 아래 이성적으로 복종시키는 것은 모든 문명의 실재성에 대한 최극의 시험이다. 자아-통제, 점점 더 자아-통제하는 것은, 발전하는 인류에게 점점 더 많이 요구되는 것이다. 비밀과 불성실 그리고 위선이 성적인 문제들을 감출 수는 있지만, 해결책은 제공하지 못하며 윤리를 발전시키지도 못한다.

제 2 장. 제한하는 금기

82:2.1 (914.7) 결혼의 진화에 관한 이야기는, 사회적, 종교적, 국가적 제한들의 압력을 통한 성(性) 통제의 역사에 불과하다. 자연본능은 개별존재들을 거의 인지하지 않는다; 그것은 소위 도덕을 알지 못한다; 오직 그리고 배타적으로 종족들의 번식에만 관심을 둔다. 자연본능은 강제적으로 번식을 계속하지만, 그 결과로 무관심하게 문제들을 남겨두어서 사회로 하여금 해결하게 하며, 그렇게 조성된 것들은 진화하는 인류에게 항상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가 된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은, 기본적인 본능과 진화하는 윤리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을 발생시킨다.

82:2.2 (914.8) 초기의 종족들 가운데에서는, 이성(異性)끼리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 이러한 성적인 자유 때문에, 매춘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피그미족들과 미개한 다른 집단들에게는 결혼 관습이 없으며; 이러한 민족들을 연구해 보면 단순히 짝을 짓는 관습이 원시적인 종족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대의 모든 민족들은 언제든지 그들 고유 시대의 사회관례에 의한 도덕적 표준의 관점에서 연구되고 판단되어야만 한다.

82:2.3 (915.1) 아무튼, 속박이 없는 사랑은 야만적인 상태의 정도보다 더 낮게 평가될 수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사회적인 집단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자마자, 결혼 관례와 부부간의 제약 조건들이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짝을 맺는 일은 수많은 변천 과정을 거쳐서, 거의 완벽한 성(性) 허용의 상태로부터 상대적으로 완벽하게 성(性)을 제약하는 20세기 표준으로 발전되었다.

82:2.4 (915.2) 부족이 형성되는 최초의 단계에서는 사회관례들과 제한적인 금기들이 매우 조잡한 상태였지만, 그것들로 인하여 이성(異性)간에 간격이 유지되었고, 이 간격은—정숙함과 질서와 산업을 장려하였다—. 오랜 세월 동안 결혼과 가정의 진화가 시작되어 왔다. 의복, 장신구 그리고 종교적 관습에서의 성(性)의 차이에 따라 관습들은, 성(性) 해방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 이들 초기 금기에서 기원되었으며, 그리하여 그것은 결국에는 악덕, 범죄 그리고 죄의 개념들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축제, 특히 5월 축제에 모든 성적 규제들을 중지하는 것은 오랜 실천 관행이었다.

82:2.5 (915.3) 여인들은 남자들보다 언제든지 더 많은 제한적 금기들의 지배를 받아왔다. 초기의 사회관례들은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에게는 남자들과 똑같은 어느 정도의 성적 해방을 허용하였지만, 아내가 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자기 남편에게 신실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시 시대의 결혼은 남자의 성적 자유는 별로 축소시키지 않았지만, 아내에게는 성적 자유에 대한 더 많은 금기들이 적용되었다. 결혼한 여인들은 별도의 집단인 것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를 항상 지니고 다녔는데, 그 표시로는 머리 모양, 의복, 면사포, 격리 표시, 장식품, 반지 등이 있었다.

제 3 장. 초기의 결혼 사회관습

82:3.1 (915.4) 결혼은, 사람에게 번식—자아-증식 하도록 끊임없이 강요하는, 항상 존재하는 생물학적 긴장 상태에 대한 사회 조직체의 제도적 반응이다. 짝을 짓는 일은 보편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며, 사회가 단순한 형태로부터 복잡하게 진화됨에 따라, 짝을 맺는 사회관례도 유사하게 진화해 가는데, 그것이 결혼 제도의 시초이다. 사회적 진화가 사회관례들이 형성되는 어떤

단계에 도달하기만 하면, 결혼이 하나의 진화하는 제도로서 성립되게 된다.

82:3.2 (915.5) 항상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항상 그렇게 되겠지만, 결혼에는 두 가지 뚜렷한 영역이 있는데: 사회관례, 짝을 맺는 데 있어서의 외부적인 측면들을 규제하는 법칙들과,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의 은밀하고 개인적인 다른 관계들이다. 사회에 의해서 강요되는 성적 규제에 대하여 개별존재는 언제나 반란을 일으키며; 이것이 다음과 같은 오랜 세월 동안의 성적 문제의 원인인데; 자아-유지는 개별적인 반면 집단에 의해서 경영되고; 자아-영속은 사회적인 반면 개별적 충동에 의해서 보장된다.

82:3.3 (915.6) 사회관례는, 높이 평가되는 경우에는, 모든 종족들 속에서 보였듯이, 성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큰 힘을 갖는다. 결혼의 기준은 항상 현재 통용되는 사회관례의 힘과 시민 정부의 기능적 고결한-순수성에 대한 참된 척도이다. 그러나 성(性)과 짝을 맺는 것에 대한 초기의 사회관례는 매우 변화가 심하고 조잡한 규정이었다. 부모, 자녀, 친척, 그리고 사회 전체가 결혼 규정에 있어서 모순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찬양하고 실천해 온 그
종족들은 보다 높은 차원으로 자연스럽게 진화되었고
증가된 숫자를 통하여 살아남았다.

82:3.4 (915.7) 원시 시대에 있어서 결혼은 사회적 신분에 대한
대가였으며; 아내를 소유하는 것은 탁월성에 대한
상징이었다. 야만인들은 자신의 결혼식 날을 성인으로
입문하고 책무를 갖게 되는 기점으로 여겼다. 어떤
시대에는 결혼이 일종의 사회적인 의무로 간주되었고,
다른 어떤 시대에는 종교적인 책무로 간주되었다; 또 어떤
시대에는 국가의 시민이 되기 위한 정치적인 필요조건이
되기도 하였다.

82:3.5 (916.1) 초기의 많은 부족들은 물건을 훔치는 재주가
있어야 결혼할 분별된-자격을 주었다; 후대의 민족들은
그러한 급습하여 약탈하는 행위 대신에 운동 시합과
경쟁적인 경기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경쟁에서의
승자에게는 최고의 상—가장 뛰어난 신부를 선택—이
주어졌다. 사람을 사냥하는 야만인들 중에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두개골을 가진 경우에만 결혼할 수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두개골을 살 수도 있었다. 구매를 통하여

아내를 얻는 경향이 줄어들면서, 수수께끼 풀기 시합을 통해 아내를 얻었는데, 그러한 관습은 여러 집단의 흑인들 속에서 아직도 실천되고 있다.

82:3.6 (916.2) 문명이 진보되면서, 어떤 부족들은 남자의 인내심을 평가하는 엄격한 결혼 시험을 여인들에게 맡겼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혼 시험에는 사냥 기술과 격투 그리고 가족을 위해 부양 능력 등이 포용되었다. 신랑은 최소한 1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신부의 가정에 들어가 살아야만 하였으며, 그곳에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맞이하기에 적당한지를 증명해야만 하였다.

82:3.7 (916.3) 아내의 분별된-자격은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그들에게는 주어진 기간 내에 특정한 양의 농사일을 마치도록 하는 일이 주어졌다. 그리고 만일 그 여자가 결혼 전에 아이를 낳으면 훨씬 더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82:3.8 (916.4) 고대의 민족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을 치욕적인 것으로 또 심지어는 죄로 간주하였다는 사실에서,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것의 기원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하고 빨리 할수록 더 낫게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신념을 갖고 있었으며, 이것이 어린 나이의 결혼을 촉진시켰는데, 심지어는 태어날 때 이루어졌고 어떤 때에는 이성(異性)의 조건으로 출생 이전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옛날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라도 반드시 결혼해야만 한다고 믿었다. 기원적 중매쟁이들은 죽은 개별존재들을 위해 결혼을 성사시키는 사람들이었다. 죽은 아들의 부모가 그 아들과 다른 가족의 죽은 딸이 결혼하도록 이러한 중매인을 정하였다.

82:3.9 (916.5) 후대의 민족들 사이에서는 사춘기가 일반적인 결혼 연령으로 여겨졌지만, 문명 진보에 직접 비례하여 발전되었다. 사회 진화의 초기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들 모두에게 독특한 독신자 계층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정상적인 성적 충동이 다소 부족한 개별존재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유지되었다.

82:3.10 (916.6) 많은 부족들은, 신부를 그 남편에게 내어주기 직전에, 통치 집단의 회원들이 신부와 성적 관계를 갖도록

허용하였다. 이 사람들 각자는 그 소녀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였으며, 이것이 결혼 선물을 주는 관습의 시초가 되었다. 어떤 집단들에서는 젊은 여자가 자기 결혼 지참금을 별도로 요구되었는데, 그 지참금은 신부가 자기 접대실에서 제공하는 성(性) 봉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선물들로 이루어졌다.

82:3.11 (916.7) 어떤 부족들은 젊은 남자들로 하여금 과부들 또는 나이 많은 여자와 결혼하게 하였고, 그 후에 그 여자가 죽게 되면 젊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는데, 만일 둘 모두 어린 사람들이 짝을 맺도록 허락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난처한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 어떤 부족들은 비슷한 나이의 집단들끼리 짝을 맺도록 제한하였다. 특정한 연령 집단들에게 결혼을 제한시킨 것 때문에 근친상간의 관념이 처음으로 생겼다. (인도에서는 지금도 결혼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82:3.12 (916.8) 어떤 사회관례에서는 과부신분이 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여, 과부들을 죽이거나 남편의 무덤 앞에서 자살하도록 하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배우자와 함께 영의 나라로 함께 들어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살아남은 과부는 반드시 그 남편의 죽음에 대해 비난을 받았다. 어떤 부족들은 산채로 그들을 태우기도 하였다. 과부가 계속 살아있는 경우에는, 그녀의 삶은 계속해서 비탄과 참을 수 없는 사회적 규제를 감수해야 하였는데 재혼하는 것이 대개 금지되었기 때문이었다.

82:3.13 (917.1) 현재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많은 실천 관행들이 옛날에는 오히려 장려되었다. 원시 시대의 아내들은, 다른 여인과 함께하는 그들 남편의 관련사들을 큰 자부심으로 여겼다. 소녀들의 순결은 결혼에 큰 장애 요인이었다; 소녀가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었는데 그 남자에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동행자를 얻었다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82:3.14 (917.2) 많은 원시적 부족들은 그 여인이 임신을 할 때까지 시험적인 결혼을 허용하였고, 그 후에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어떤 집단들에서는 첫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결혼식을 거행하지 않았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녀의 부모가 도로 데려갔고, 그 결혼은 취소되었다. 사회관례는 모든 부부가 아이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다.

82:3.15 (917.3) 이러한 원시적인 시험적 결혼은 겉으로 보기에 방종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만 생식력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시험했다. 계약하는 개별존재들은 출산 능력이 인정되자마자 영구적으로 결혼했다. 현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손쉽게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결혼할 때, 만일 그 부부가 자기들의 결혼 생활에 전혀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체 안에서 시험적인 결혼이 시작된 상태이며 그러한 것은 그들보다 덜 문명화된 조상들의 정직한 모험보다도 훨씬 가치가 떨어진다.

제 4 장. 재산 관례 아래에서의 결혼

82:4.1 (917.4) 결혼은 언제나 재산과 종교 둘 모두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재산은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종교는 도덕을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82:4.2 (917.5) 원시적인 결혼은 일종의 투자, 경제적인 투기 행위였으며; 즐기기 위한 것보다는 사업적인 문제와 더 많이 관련되었다. 고대의 사람들은 집단의 이점(利點)과 복지를 위하여 결혼하였다; 그것을 위하여 그 집단, 그들의 부모들과 연장자(年長者)들에 의해 그들의 결혼이 계획되고 추진되었다. 그리고 재산 사회관례는 사회적

관습이 결혼 제도를 안정시키는 일에 효력을 나타냈다는 것은, 많은 현대인들의 결혼보다 초기 부족들의 결혼이 더 영구적이었다는 사실에 의해서 확증된다.

82:4.3 (917.6) 문명이 발달되고 사유 재산이 사회관례 속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게 되면서, 훔치는 행위는 큰 죄로 여겨지게 되었다. 간음은 훔치는 행위, 그 남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초기의 법전과 사회관례에서는 특별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여인은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의 재산으로 출발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남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으며, 모든 공인된 성(性) 관계들은 이러한 선재(先在)된 재산권으로부터 조성되었다. 구약 성서는 여인들을 재산 형태로 취급하며, 코란은 여인들이 열등한 것으로 가르친다. 남자는 자기 아내를 친구 또는 손님에게 빌려줄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 이러한 관습은 어떤 민족들 속에서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82:4.4 (917.7) 현대의 성(性) 질투심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사회관례의 산물이다. 원시인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질투심을 갖지 않았고; 자기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남편보다 더 엄격한 성(性) 중요성이

아내에게 부과된 것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녀의 간통 행위가 혈통과 유전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문명이 시작된 매우 초기에는 사생아를 낳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졌다. 처음에는 여자들만이 간음에 대해 처벌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사회관례에 따라서 그 상대자에게도 징벌이 내려졌으며, 손해를 입은 남편이나 보호할 책임이 있는 아버지가, 불법을 행한 그 남자를 죽일 수 있는 충만한 권한이 오랜 세월 동안 주어져 왔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사회관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불문율이라는 명목 하에 소위 명예훼손죄를 허용하고 있다.

82:4.5 (917.8) 순결을 지키게 하는 금기가 재산 사회관례의 한 현상으로 기인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결혼하지 않은 소녀들이 아니라 결혼한 여인들에게 적용되었다. 후대에 이르러서는 구혼자보다 아버지가 더 순결을 요구하였는데, 처녀는 그 아버지에게 하나의 상업적인 자산—더 값이 나가는—이었다. 순결이 더 많이 요구되게 되자, 순결한 신부를 훌륭하게 길러준 봉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신부 값을 남편-되려는-사람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하는 것이 실천 관행이 되었다. 여자의 순결에 대한 이 관념이 일단 시작되어 종족 전체에 퍼지게 되자, 소녀들의

순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을 실재로 가두어두는, 여러 해 동안 말 그대로 감금시키는 실천 관행이 되었다. 그리하여 보다 최근의 규범과 처녀성 시험에 의해서 전문적인 매춘 계급들이 자동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그들은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신부들이었는데, 신랑의 어머니에 의해서 처녀가 아니었음이 발견된 여자들이었다.

제 5 장. 동족(同族) 결혼과 족외(族外) 결혼

82:5.1 (918.1) 매우 초기의 야만인들은 종족이 혼합됨으로써 자손들의 본질특성이 향상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근친결혼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부족과의 결혼이 항상 비교적 더 나았으며, 그리하여 사회관례는 가까운 친척들 사이의 성 관계를 제한하도록 구체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다른 부족과의 결혼이 진화적 변동과 진보를 위한 선택적인 기회를 훨씬 더 증대시켰다. 다른 부족과 결혼한 개별존재들은 더욱 재능이 많았고 불리한 세계 속에서 생존하는 능력이 훨씬 컸다; 근친결혼은 그들의 사회관례에 따라 점차 사라져 갔다. 이 모든 것은 매우 느린 속도로 발전된 것이었다; 야만인들이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의식 속에서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후대의 진보된 민족들은 그것을 의식적으로 알았으며, 또한 그들은 과도한 근친결혼의 결과에 의해서 때로는 전반적인 허약성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였다.

82:5.2 (918.2) 우수한 혈통의 근친결혼은 때로 강력한 부족들을 형성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유전적인 결함이라는 근친결혼의 나쁜 결과가 초래되는 놀라운 사건 때문에 진보적인 사회관례는 가까운 친척들 사이의 모든 결혼을 반대하는 금기를 점점 더 많이 구체화시켰다.

82:5.3 (918.3) 종교는 오랫동안 외부-결혼에 반대하는 효력 있는 장애요인이 되어 왔는데; 많은 종교들은 신앙이 외부와의 결혼을 금지하도록 가르친다. 여자들은 대개 내부-결혼 실천 관행을 좋아하고; 남자들은 외부-결혼을 선호한다. 재산이 항상 결혼에 영향을 미쳐 왔으며, 씨족에게 소속된 재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자기 아버지 부족들 속에서 남편을 찾도록 여인들에게 강요하는 사회관례도 종종 생겨났다. 이러한 종류의 규칙들로 인하여, 사촌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내부-짝짓기는 기술을 비법으로 간직하려는 노력에서

실천되기도 하였다; 숙련된 기능인들은 자기 기술을 가족들만 알 수 있게 하려고 애썼다.

82:5.4 (918.4) 우월한 집단들은, 고립되었을 때에는 언제나 동족끼리 짝을 맺는 쪽으로 전환되었다. 낫-사람들은 150,000년 이상 동안 거대한 내부-결혼 집단들 중의 하나였다. 후대의 내부-결혼 사회관례는 주로 보라색 인종의 전통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반드시 남매들끼리 짝을 맺었다. 그리고 남매들끼리의 결혼은 초기의 이집트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안드-사람들이 한 때 점령하였던 지역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실행되었다. 이집트인들은 왕족의 피를 순결하게 지키려는 노력에서 남매끼리의 결혼을 오랫동안 실천하였는데, 페르시아에서는 더 오랫동안 지켜진 관습이었다. 아브라함 시대 이전의 메소포타미아인들 사이에서는, 사촌들끼리의 결혼이 의무적이었다; 사촌들에게는 사촌들과 결혼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졌다. 아브라함 자신도 거의 자매와 닮은 여자와 결혼하였지만, 그러한 연합은 유대인들의 후대 사회관례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82:5.5 (919.1) 남매간의 결혼이 처음으로 배제되기 시작한 것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사회관례 밑에서 자매-아내가 다른 아내 또는 아내들 위에 거드름을 부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부족의 사회관례는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였지만 살아남은 형제로 하여금 죽은 형제를 위해 아이를 낳아 주도록 요구하였다. 어떤 등급의 내부-결혼도 전혀 반대할 만한 생물학적 본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규제는 전적으로 금기의 문제이다.

82:5.6 (919.2) 마침내 외부-결혼이 보편화되었는데, 그것은 남자들이 선호하였기 때문이었다; 밖에서 아내를 취함으로써 인척들로부터 덜 속박 받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가까운 관계는 배척되고 개별적 선택의 요소가 짝을 맺는 주요 요인이 되어, 상대방을 부족 밖에서 선택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82:5.7 (919.3) 많은 부족들은 마침내 씨족 내의 결혼을 금지하였고; 또 어떤 부족들은 특정한 특권계급과 짝을 맺는 일을 제한시켰다. 자기 토템과 같은 토템을 가진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금기 때문에 이웃 부족으로부터 여인들을 훔쳐오는 관습이 촉진되었다.

나중에는, 친족관계보다는 거주 지역에 따라서 더 많이 규제되었다. 현대적 외부-결혼 실천 관행에 들어오기까지, 내부-결혼의 진화 안에는 많은 단계들이 있었다. 심지어는 내부-결혼에 대한 금기가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된 후에도, 우두머리들이나 왕들의 경우에는 왕족의 혈통을 모으고 순결하게 하기 위하여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하도록 허용되었다. 사회관례는 대개 주권을 가진 통치자들에게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82:5.8 (919.4) 후대의 안드-사람들이 현존함으로써 산각 종족들은 자기 부족 밖에서 짝을 찾으려는 욕구가 무척 증대되었다. 그러나 이웃에 있는 집단들이 비교적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배울 때까지는, 외부-결혼이 일반화 될 수 없었다.

82:5.9 (919.5) 외부-결혼 자체는 평화 촉진자이었으며, 결혼이 이루어진 부족들 사이에서는 적대감이 줄어들었다. 외부-결혼은 부족의 조화-협동과 군사 동맹을 유도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힘이 강대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국가를 세운 요인이 되었다. 또한 외부-결혼은 거래를 위해 접촉을 이루는 경우가

증대됨으로써 크게 환영을 받았다; 모험과 탐험은 짝을 맺는 범위를 넓히는 일에 공헌하였고, 인종적인 문화의 교류를 크게 촉진시켰다.

82:5.10 (919.6) 종족의 결혼에 대한 사회관례의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모순점들은, 아내를 훔쳐오는 일과 다른 부족들로부터 구매하는 일과 함께 이러한 외부-결혼의 관습이 그 원인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다른 부족의 사회관례들이 복잡하게 얽힌 결과였다. 내부-결혼에 관한 이러한 금기는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것이었다는 사실은, 친족관계 간의 결혼에 대한 금기에 의해 잘 설명되는데, 그것은 여러 단계의 인척 관계와 조금도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를 포용하고 있었다.

제 6 장. 종족의 혼합

82:6.1 (919.7) 오늘날의 세계에는 순수한 종족이 존재하지 않는다. 초기의 기원적인 진화적 유색 인종들 중에서는 오직 두 가지 대표적인 인종들만이 세상에 남아 있는데, 황색 인종과 흑색 인종이 그들이다; 심지어 이 종족들도 사라진 유색 인종들과 많이 혼합되었다. 소위 백색 인종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주로 고대의 청색 인종의

자손이지만, 아메리카의 적색 인종과 마찬가지로 모든 다른 종족들과 어느 정도 혼합되었다.

82:6.2 (919.8) 6가지 색깔의 산각 종족들 중에서, 3가지는 1차적이고 다른 3가지는 2차적이다. 비록 1차 인종들—청색, 적색, 황색—이 여러 가지 면에서 2차 인종들보다 우월할 지라도, 만일 그들의 더 좋은 혈통들이 흡수될 수만 있었다면 1차 인종들을 상당히 발전시켰을 바람직한 많은 특색들이 2차 인종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82:6.3 (920.1) “반(半)-특권계급”, “혼혈”, “튀기”를 싫어하는 지금-현재의 편견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 인종들 중의 크게 열등한 혈통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현대의 인종적 잡종이 고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또한 같은 종족의 상호결혼의 경우에 불만족스럽게 퇴보된 후손을 얻고 있다.

82:6.4 (920.2) 만일에 지금-현재의 유란시아의 종족들이 그들의 타락하고, 반(反)사회적이며, 미약한-마음을 지닌, 그리고 버림받은 그러한 가장 낮은 층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면,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종족 혼혈에 거의

반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종족의 혼합이 몇몇 종족들의 최고 유형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면, 여전히 제시될 수 있는 반대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82:6.5 (920.3) 우월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혈통들의 교배는, 새롭고도 더욱 강건한 혈통이 형성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 종족에서도 실제로 있는 일이다. 잡종을 통하여 힘이 증강되고 번식력이 증가된다. 북아메리카에 있는 미국의 현재 주민들 속에서 보이고 있듯이, 다양한 민족들의 평균적인 또는 우월한 계층들의 인종적 혼합이 창조적인 잠재를 크게 증가시킨다. 그러한 짝을 맺는 일이 보다 낮은 또는 열등한 계층들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지금-현재 남부 인도에 있는 민족들에 의해 보이는 것처럼, 창조력이 줄어든다.

82:6.6 (920.4) 종족 혼성은 새로운 특징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일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며, 만일 그러한 잡종이 우월한 혈통들의 연합에 의한 것이라면 새로운 이 특징들 역시 우월한 특색을 가질 것이다.

82:6.7 (920.5) 지금-현재의 인종들이 열등하고 퇴화된 혈통들로 너무 넘치고 있는 한, 대규모로 벌어지는 종족 뒤섞임은 가장 해로운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실험에 대한 반대의 대부분은 생물학적인 고려라기보다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편견에 들어있다. 심지어는 열등한 종족들 중에서도 잡종이 종종 그들의 선조들보다 개선된다. 잡종이 종자의 개량을 가져오는 것은 우성 유전자들의 역할 때문이다. 인종적 혼합은 잡종 안에서 나타날 바람직한 우성 존재의 숫자를 증대시킨다.

82:6.8 (920.6) 유란시아에서 수천 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것보다도 더 많은 인종적 잡종이 지난 수백 년 동안에 발생되었다. 인간 혈통들이 섞인 결과에 의한 심각한 부조화의 위험이 너무 과장되어 왔다. "혼혈아"에 대한 주된 문제는 사회적인 편견에서 기인된다.

82:6.9 (920.7) 백색 인종과 폴리네시아 인종을 섞는 핏케른 실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백색 인종 남자와 폴리네시아인 여인들은 매우 좋은 인종적 혈통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한 유형의 백색과 적색 그리고 황색 인종들 사이의 혼혈은 생물학적으로 효력이 있고 새로운

많은 특징들을 즉각적으로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세 인종들은 1차 산각 종족에 속한다. 백색 인종과 흑색 인종의 혼합은 당대의 결과로 볼 때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그러한 1대 혼혈 자손이 너무 적당치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또는 인종적 편견이 그러한 자손들을 낳으려고 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백색-흑색 혼혈아가, 다른 면들에서는 약간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면에서는 인간성에서의 탁월한 표본이다.

82:6.10 (920.8) 1차 산각 종족이 2차 산각 종족과 혼합되었을 때, 전자(前者)의 희생에 의해 후자(後者)는 상당히 개선된다. 그리고 소규모—오랜 기간에 걸친—로 이루어진다면, 2차 집단들의 향상을 위하여 1차 인종들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기여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반대할 이유는 거의 없다. 생물학적으로 고려한다면, 2차 산각들은 1차 인종들보다 어떤 면에서 우월하기도 하다.

82:6.11 (921.1) 결국, 인간 종족들의 실제적인 위험은, 다양한 문명화된 인종들의 인종적인 혼혈에 대해 추정되는 위험에서라기보다는 그들의 열등하고 퇴보된 혈통들의 무제한적인 번식에 기초된다.

82:6.12 (921.2) [유란시아에 배치된 세라핌천사 우두머리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83 편 결혼 제도

83:0.1 (922.1) 이것은 결혼 제도의 초기 시작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무리 속에서 이루어진 느슨하고 불규칙적인 짝
짓기에서부터, 많은 변화와 적응의 단계들을 거쳐,
결국에는 한 쌍의 짝이 맺어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가장 높은 사회 계층인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정점에 달하게 되었던, 결혼 기준들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진보해 왔다.

83:0.2 (922.2) 결혼은 여러 번 위험한 고비를 넘겼으며, 결혼에
관한 사회관례가 지속된 것은 주로 재산과 종교
때문이었지만, 결혼과 그 결과에 의한 가족을 언제까지나
유지시키는 실제적인 영향은, 그들이 가장 원시적인
야만인이든지 또는 가장 문명화 된 필사자이든지,
남자들과 여자들이 서로 상대방 없이는 결코 살 수가
없다는 단순하면서도 타고난 생물학적 사실이었다.

83:0.3 (922.3) 이기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으로부터
동물보다 나은 어떤 것을 만들도록 유도한 것은 성(性)

충동이였다. 자아를-존중하고 자아를-충족시키는 성적 관계는 자아-부정이라는 일정한 귀결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타적 의무들과 종족에-이익을 주는 수많은 가정적(家庭的) 책임을 맡긴다. 여기에서 성(性)은 야만인에서의 인지되지 않고 추정되지 않은 문명자가 되어 왔다; 왜냐하면 이 동일한 성적 충동이 자동적으로 그리고 어김없이 사람을 생각하도록 몰아붙이고 결국에는 사랑하도록 그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제 1 장. 사회 제도로서의 결혼

83:1.1 (922.4) 결혼은, 양성(兩性)이라는 육체적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많은 인간적 관계들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사회적 기능구조이다. 그러한 제도로서의 결혼은 두 가지 방향으로 기능 한다:

83:1.2 (922.5) 1. 개인적인 성적 관계들에 대한 규제로.

83:1.3 (922.6) 2. 혈통, 유전, 상속, 그리고 사회적 계층에 대한 규제로, 이것은 더 오래된 것이고 근본적인 기능임.

83:1.4 (922.7) 결혼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족 그 자체는 재산 사회관례와 함께 결혼 제도를 안정시킨 요소이다. 결혼을

안정시킨 다른 유력한 요소들은 자부심, 허영심, 기사도(騎士道), 의무,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 등이 있다. 그러나 결혼이 높은 곳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인정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가족은 명백하게 인간적인 제도, 진화적인 발전의 결과이다. 결혼은 사회의 제도이며, 교회가 다룰 영역이 아니다. 종교가 그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배타적으로 그것을 규제하고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83:1.5 (922.8) 원시 결혼은 기본적으로 산업적 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현대에서도 종종 사회적 또는 사업적 관련사이다. 안드-사람 혈통의 영향을 통하여 그리고 향상하는 문명에서의 사회관례의 결과로, 결혼은 서서히 상호간의, 낭만적, 온정적, 시적(詩的), 애정적, 윤리적 그리고 나아가 이상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어쨌든, 선택과 소위 말하는 낭만적 사랑은 원시 짝 짝기에서는 극히 적었다. 초기 시대 동안에 남편과 아내는 그리 많이 같이 있지 않았다; 그들이 함께 먹는 것조차도 그리 자주 없었다. 그러나 고대의 사람들 사이에서 개인적인 애정은 성(性)

인력과 크게 관련되지는 않았으며, 주로 같이 살고 일하기 위해 서로를 좋아하였다

제 2 장. 구혼(求婚)과 약혼

83:2.1 (923.1) 원시인들의 결혼은 항상 그 소년과 소녀의 부모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관습과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대 사이의 전환기 단계에서는, 결혼 중개인 또는 전문적인 중매쟁이가 활동하였다. 이들 중매쟁이들은 처음에는 머리를 깎는 사람들이었고; 나중에는 사제(司祭)들이었다. 결혼은 기원적으로 한 집단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 가족의 문제였으며; 최근에 이르러서야 그것이 개별존재적인 모험으로 바뀌었다.

83:2.2 (923.2) 인력이 아니라 강제력으로 원시 결혼에 접근되었다. 초기 시대에서는 여자에게는 성(性)에서의 쌀쌀함이 없었고, 단지 사회관례로 인하여 끈질기게 심어진 성(性)에서의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 탈취가 거래보다 선행되었던 것처럼, 사로잡아 결혼하는 것이 계약에 의한 결혼보다 선행하였다. 어떤 여인들은 자기 부족의 나이 많은 남자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생포될 때 모른 채 하곤 했다; 그들은 자기 나이 또래의

다른 부족 남자들의 손에 잡히는 것을 더 좋아하였다. 이 위장된 도주는, 강제로 생포하는 것과 나중에 매력에 의한 구혼 사이에 있었던 과도기적 단계였다.

83:2.3 (923.3) 초기 유형의 결혼식은 흥내를 낸 탈출, 한때 일반적인 관습이었던 일종의 도주를 재연한 것이었다. 나중에는, 생포를 흥내 내는 것이 정상적인 결혼식의 일부분이 되었다. 현대의 소녀가 "생포"에 저항하는 척하고 결혼에 대하여 입이 무거운 듯 꾸미는 것은 모두 옛 관습의 유물들이다. 신부를 안아 문턱을 넘어 옮기는 것은 수많은 고대 실천 관행을 회상하는 것, 다른 것 중에서도 아내를 흠치던 시절을 회상해 내는 것이다.

83:2.4 (923.4) 여자는 결혼생활에서 자아-처분의 충만한 자유를 오랫동안 누리지 못하였지만, 매우 지능적인 여자들은 지혜를 현명하게 발휘함으로써 이러한 규제를 항상 교묘하게 회피할 수 있었다. 구혼(求婚)에 있어서 대개 남자들이 주도권을 가져왔지만, 항상 그렇지 는 않았다. 어떤 때에는 여자가 공식적으로 또는 은밀하게 결혼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문명이 진전됨에 따라, 구혼(求婚)과

결혼의 모든 위상들에서 여자들이 점점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83:2.5 (923.5) 결혼 전에 하는 구혼에서 점차로 사랑, 낭만 그리고 개인적 선택이 증가하는 것은 세계의 종족들에 대하여 안드-사람이 공헌한 것이다. 이성(異性) 간의 관계들은 순조롭게 진화하고 있다; 앞서있는 많은 민족들은, 차츰차츰 편리성과 소유관계라는 구시대(舊時代)의 동기를 성(性) 인력의 다소간은 이상화된 개념으로 갈아 치우고 있다. 삶의 동반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성(性)에서의 충동과 애정의 감정이, 냉철한 계산을 대신하기 시작하고 있다.

83:2.6 (923.6) 약혼은 기원적으로 결혼과 동일하였다; 초기 사람들 사이에서 성적인 관계는 약혼 기간 동안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었다. 최근에 들어서, 약혼과 결혼 사이의 기간 동안의 성적(性的) 관계를 막는 금기가 조성된 것은 종교 때문이었다.

제 3 장. 아내 사들이기와 결혼 지참금

83:3.1 (923.7) 고대의 사람들은 사랑과 약속을 신용하지 않았다; 영구적인 연합은 눈에 보이는 어떤 보장물(保障物),

재산에 의해서 보증을 받아야만 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내를 구매하는 비용은, 이혼 또는 파혼의 경우에 있어서 남편이 손해를 받도록 선고되는 벌금 또는 공탁금으로 간주되었다. 일단 신부에 대한 값이 지불되고 나면, 많은 부족들은 남편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낙인을 불로 지저서 신부의 몸 위에 새기도록 허용하였다. 아프리카 남자들은 아직도 아내를 구매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내 또는 백인 남자의 아내를 그들이 고양이에 비유하는 것은 그 여자에게 아무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3:3.2 (924.1) 딸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아름답게 치장하여 대중에게 전시하는 신부 구경은 아내로서의 그들의 값을 더 높여보려는 관념에서 온 계기였다. 그러나 그들이 동물처럼 팔린 것은 아니었다.—후대의 부족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아내는 양도가 불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냉정한 돈 거래만이 항상 그 여자를 사는 것은 아니었다; 아내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봉사하는 것도 현찰과 똑같이 취급되었다. 만약에 호감을 주는 남자가 자기 아내에 대한 값을 지불 할 수 없으면, 그 소녀의 아버지에 의해서 양자로 받아들여진 후에 결혼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만일 가난한 남자가 아내를 얻고자 하지만 욕심 많은 아버지가 요구하는 값을 지불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들이 그 아버지에게 영향을 줄만한 압력을 가하여 그가 요구하는 것을 변경시키게 하거나 또는 애인과 함께 달아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83:3.3 (924.2) 문명이 진보되면서, 아버지들은 자기 딸들을 파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신부 구매 비용을 계속 받는 대신에, 그 구매 비용과 거의 동등한 값이 나가는 부부를 위한 선물들을 주는 관습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후대에 신부를 위해 값을 지불하는 일이 중지되면서, 이러한 선물은 신부의 지참금으로 바뀌게 되었다.

83:3.4 (924.3) 지참금에 대한 관념은 신부의 자주성(自主性)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으며, 노예와 같은 아내 그리고 소유물로서의 동행자로 여기던 시대와는 매우 달라졌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지참금을 가져온 아내에게 그 지참금을 충분히 돌려주기 전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다. 어떤 부족들 사이에서는 신부와 신랑 양측의 부모들이 동시에

공탁금을 내었는데, 이것은 어느 한 편이 다른 편을 버렸을 경우에 몰수하기 위한, 실체 안에서 결혼 공탁금이었다. 구매하는 단계로부터 지참금의 단계로 옮겨가는 과도기 기간 동안에는, 만일 아내가 구매된 경우에 그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소속되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내의 가족에게 소속되었다.

제 4 장. 결혼 예식

^{83:4.1 (924.4)} 결혼 예식은 결혼이 다만 두 개별존재가 내리는 결정에서의 절정일 뿐만 아니라, 기원적으로 한 공동체의 일이었다는 사실에서 발생되었다. 짝을 맺는 일은 개인적 기능이었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관심사였다.

^{83:4.2 (924.5)} 마술과 종교예배 그리고 예식은 고대 사람들의 전체 생활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결혼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명이 진보되면서, 결혼은 더욱 진지하게 중요시되었기 때문에, 결혼 예식은 점점 더 화려하게 꾸며졌다. 초기의 결혼은 재산권에 있어서의 한 요소였는데,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며,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예식이 요구되었고, 한편으로는 뒤이어 출생하는 자녀들의 사회적 지위는 될 수 있는 한 가장 널리 홍보하는 것을

강력히 필요로 했다. 원시인들에게는 기록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 예식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어야만 하였다.

83:4.3 (924.6) 처음에는 결혼 예식이 약혼 수준에 더 가까웠고, 다만 함께 살 것이라는 의도를 대중적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나중에, 이것은 형식적으로 함께 식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어떤 부족들 사이에서는 부모가 자기 딸을 그 남편에게 넘겨주는 것이 전부였으며; 또 다른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선물을 교환하는 것이 유일한 예식이었고, 그 후에 신부의 아버지가 그녀를 신랑에게 넘겨주었다. 많은 레반트 민족들 사이에서는 모든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결혼이 완료되는 것이 관습이었다. 적색 인종은 보다 복잡한 결혼 예식을 개발한 최초의 인종이었다.

83:4.4 (924.7) 아이가 없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었으며,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영적인 존재의 음모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생식 능력을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어떤 신비적인 또는 종교적인 예식들이 결혼과 관계적-연합되게 되었다. 그리고 행복하고 풍성한 결혼이 되게

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마법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심지어는 생일에 해당되는 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점성가들에게 상담하기도 하였다. 한 때는 부유한 사람들의 모든 결혼에서 사람을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일이 공식적인 순서였다.

83:4.5 (925.1) 행운을 주는 날을 찾고자 하였는데, 목요일이 가장 좋은 날로 여겨졌으며, 보름달이 뜨는 날에 결혼 예식을 올리는 것이 특별한 행운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였다. 신혼부부에게 곡식을 던지는 것은 많은 근동(近東) 지방 민족들의 관습이었다; 이것은 생산력을 보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마술적인 예식이었다. 동방의 어떤 민족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쌀을 사용한다.

83:4.6 (925.2) 불과 물은 항상 귀신들과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최고의 도구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제단의 불과 촛불뿐만 아니라 성수(聖水)를 뿌려서 세례를 주는 것도 결혼식에서 흔하게 징표로 이용되었다. 가짜로 결혼식 날을 잡아 놓은 다음 갑자기 그 사건을 연기시킴으로써 귀신들과 영들을 속이는 것이 오랫동안 관습으로 지켜졌다.

83:4.7 (925.3)

신혼부부에게 짓궂게 굴고 신혼여행 중인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는 일은 모두 이러한 오랜 옛 시대의 잔재들인데, 옛날에는 영들이 보는 앞에서 불쌍하고 고통스럽게 보임으로써 그들의 질투심을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신부가 면사포를 쓰는 것은, 신부를 변장시킴으로써 영들로 하여금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또한 질투하고 시샘하는 다른 영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던 시대의 잔재이다. 예식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는 신부의 발이 땅에 닿지 않아야만 하였다. 심지어는 20세기에 이르러서도, 차가 도착된 곳으로부터 교회의 제단 앞까지 양탄자를 까는 것이 그리스도교 사회관례 속에서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83:4.8 (925.4)

결혼 예식의 가장 오래된 형태들 중의 하나는, 어느 사제로 하여금 결혼하는 사람들의 침실을 축복하게 하여 그 연합에서 많은 자손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공식적인 결혼 예식이 이행되기 훨씬 전에 행해졌다. 결혼에 관한 사회관례가 진화한 이 시대 동안에는, 결혼식에 초대된 사람들이 밤에 침실에서 줄을

서 있었고, 그렇게 하여 결혼의 완료에 대한 합법적인
증인이 되었다.

83:4.9 (925.5) 운수와 관계되는 요소, 결혼 이전의 모든 시험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혼은 나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원시인들은 결혼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였다; 성직자들과 마법에 의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현대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결혼식에서 정점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혼은
일반적으로 약혼하는 부모들—나중에는 당사자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랫동안 이해되었던
반면에, 지난 500년 동안에는 교회와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였고 지금은 결혼을 선언하고 있다.

제 5 장. 복수(複數)의 결혼

83:5.1 (925.6) 초기의 결혼 역사에서 보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은 그 부족의 남성들에게 소속되었다. 나중에는 한
여인이 한 번에 오직 한 남편만을 가질 수 있었다. 한 번에-
한-남자라는 실천 관행은 집단적인 혼잡한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는 첫 단계였다. 한 여자에게는 한 남자만이 허락된
반면, 그 남편은 그러한 임시적인 관계를 뜻대로 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느슨하게 규제되는 관계적-연합은 무리를 지어 사는 상태와 구별되어 한 쌍으로 사는 방향을 향한 첫 걸음이었다. 이러한 결혼 발전 단계에서는 어린아이들은 대개 어머니에게 소속되었다.

83:5.2 (925.7) 짝을 짓는 진화의 다음 단계는 집단적인 결혼이었다. 이러한 공동적 결혼 위상이 가족생활이 전개되는 과정에 끼어들었는데, 왜냐하면 한 쌍의 관계적-연합을 영구적으로 만들어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결혼의 사회관례가 아직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남매간의 결혼은 이러한 계열에 속하는 것이었는데; 한 가족의 다섯 형제들이 다른 가족의 다섯 자매들과 결혼하곤 하였다. 보다 느슨한 유형의 전(全)세계적인 공동적 결혼이 점차 진화되어 여러 유형의 집단적 결혼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적 관계적-연합은 주로 토템 사회관례에 의해서 규제되었다. 가정생활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발전되었는데 왜냐하면 성과 결혼의 규제는 더 많은 숫자의 자녀들의 생존을 보장함으로써 부족 자체가 살아남도록 기여하였기 때문이었다.

83:5.3 (926.1) 집단적 결혼은, 보다 진보된 부족들 사이에서 일부다처제—일부다처(一夫多妻)와 일처다부(一妻多夫)—의 실천 관행이 창발하면서 점차 사라졌다. 그러나 일처다부는 한 번도 일반화된 적이 없었는데, 대개 여왕 또는 부유한 여자들의 경우로 제한되었다; 더욱이 여러 형제들이 한 아내를 갖는 것은 관례상 어떤 가족의 문제였다. 특권계급과 경제적인 제한 때문에, 여러 남자들이 한 아내로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러한 경우라도 그 여인은 오직 한 번만 결혼할 수 있었으며, 다른 남자들은 공유되는 자손들의 “삼촌들”로서 대충 참고 지냈다.

83:5.4 (926.2) 유대인의 관습은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줄” 목적으로 그의 아내와 결합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고대의 세계에서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지키던 관습이었다. 이러한 관습은 결혼이 개별존재적인 관계적-연합보다는 가족의 일이었던 시대의 잔재였다.

83:5.5 (926.3) 여러 시대에 있어서 일부다처제도는 네 가지 종류의 아내를 인정하였다:

83:5.6 (926.4) 1. 예식을 치른 또는 합법적인 아내.

83:5.7 (926.5) 2. 애정을 느끼는 허락된 아내.

83:5.8 (926.6) 3. 첩, 계약상의 아내.

83:5.9 (926.7) 4. 노예 중에서 아내를 삼은 경우.

83:5.10 (926.8) 모든 아내들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모든 자녀들도 똑같이 취급되는 진정한 일부다처제는 아주 드물었다. 대개의 경우, 심지어는 복수(複數)의 결혼에서도, 그 가정은 우두머리 아내, 지위상의 동행자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그녀만이 결혼 예식을 치렀으며, 그 신분상의 아내와 특별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구매된 또는 지정된 배우자의 자녀들만이 상속권을 가질 수 있었다.

83:5.11 (926.9) 지위상의 아내는 반드시 사랑 받는 아내일 필요는 없었다; 초기 시대에는 대개 그렇지 않았다. 사랑 받는 아내 또는 애인은, 그 종족들이 상당한 진보를 이룩할 때까지 그리고 보다 자세히 말한다면 진화하는 부족들이 낫-사람들 그리고 아담-사람들과 섞인 이후까지 출현하지 않았다.

83:5.12 (926.10)

금기의 아내—법적 지위를 지닌 한 명의 아내—는 첩을 두는 사회관례를 만들었다. 이들 사회관례 밑에서는, 남자가 한 아내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는 몇 명의 첩이라도 성(性)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첩을 두는 일은 일부일처제에 이르는 디딤돌, 공공연한 일부다처제에서 벗어나는 최초의 움직임이었다. 유대인, 로마인 그리고 중국인들의 첩은 아주 흔히 아내의 하녀들이었다. 나중에는, 유대인 사이에 그러하듯, 법적 아내가 남편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의 어머니로 여겼다.

83:5.13 (926.11)

임신하거나 젖을 먹이는 아내와 성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옛날의 금기가 일부다처제를 크게 육성시켰다. 원시 시대의 여인들은 자주 아이를 낳고 힘든 일을 하였기 때문에 빨리 늙었다. (과중한 일이 맡겨진 그러한 아내들은 아이를 갖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 달마다 한 주일씩 혼자 있도록 조치된 덕분에 겨우 그럭저럭 버티었다.) 아이를 기르는 일로 자주 지쳤던 그 아내는 남편에게 보다 젊은 아내, 아이를 기르는 일과 가사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도록 요청하곤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얻은 아내들은 나이 많은 배우자들에

의해서 대개 환영을 받았다; 옛날에는 성적인 질투심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83:5.14 (926.12) 아내의 숫자는 오직 그들을 부양하는 남자의 능력에 의해서 제한될 뿐이었다. 부유하고 유능한 남자는 많은 숫자의 자녀들을 원하였고, 아이들의 사망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큰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많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복수(複數) 아내들 대부분은 단순한 노동자, 노예를 삼은 아내에 불과하였다.

83:5.15 (927.1) 인간의 관습들은 진화하지만, 속도가 매우 느리다. 하렘의 목적은 권좌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력하고도 많은 숫자의 같은 혈통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었다. 어떤 지배자는 한 때 하렘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과, 한 명의 아내로 만족해야겠다고 결심하였기 때문에; 즉시 자신의 하렘을 해산시켰다. 불만을 품은 아내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들의 성난 친척들이 복수를 하기 위하여 그 지배자를 내몰았고 그를 즉석에서 처치해 버렸다.

제 6 장. 진정한 일부일처제-부부의 결혼

83:6.1 (927.2) 일부일처제는 독점이다; 이것은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이게는 좋지만, 그러한 행운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생물학적 어려움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별존재에게 미치는 영향에 전혀 상관없이, 아이들에게는 일부일처제가 명백한 최선책이다.

83:6.2 (927.3) 가장 일찍 있었던 일부일처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난 때문이었다. 일부일처제는 문화적이며 사회적이지만, 인위적이고 자연스럽지 않다. 다시 말해서, 진화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남보다 순수한 낫-사람과 아담-사람에게는 전적으로 자연스러웠으며 그래서 모든 향상된 종족에게 위대한 문화적 가치로 있어왔다.

83:6.3 (927.4) 갈대아의 부족들은, 두 번째 아내 또는 첩을 얻지 않도록, 결혼 이전에 그녀의 배우자에게 담보물을 부과하는 아내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인들 모두 일부일처의 결혼을 선호하였다. 조상 경배는 항상 일부일처제를 육성시켰는데, 그리스도교인들이 결혼을 하나의 성례(聖禮)로 간주하는 실수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심지어는 생활 표준의 향상도 복수의

아내를 두는 일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다. 유란시아에
미가엘이 도래하였을 무렵에 문명화된 모든 세계는
실천적으로 일부일처제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차원에
도달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동적인 일부일처제는,
인류가 실제적인 한 쌍의 결혼의 실천에 익숙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83:6.4 (927.5) 결국에는 어떤 독점적인 성(性) 관계적-연합인, 한
쌍의 이상적인 결혼이라는 일부일처 제도의 목적을
추구하는 동안, 그것이 요구하는 바에 최선의 협조를 하고
고려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새롭고도 개선된 사회
계층 속에서 위치를 발견하지 못한 불행한 남자들과
여자들의 난처한 상황을 사회가 못 본체 해서는 안 된다.
서로 경쟁하는 사회 경기장 속에서 짝을 찾지 못하는 일은
현 사회관례가 강요해 온 이길 수 없는 난관이나 혹은
각양각색의 제약에서 기인될 수 있다. 이미 그것을 이룩한
사람들에게는 일부일처제가 이상적이지만, 혼자서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큰 어려움임에 틀림없다.

83:6.5 (927.6) 소수의 불행한 자들은 항상, 대다수가 진화하는 문명의 발전하는 사회관례 아래에서 진보를 이룩하는 것을 참아 내야만 해 왔다; 그러나 혜택을 입은 대다수는, 향상하는 사회적 진화의 최고의 사회관례에 대한 인정 밑에서, 모든 생물학적 충동에 만족을 제공하는 이상적인 성(性) 동반자 관계를 달성하는 데에 실패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자기들보다 운이 덜 따른 동료들을, 반드시 친절함과 배려로 바라보아야만 한다.

83:6.6 (927.7) 일부일처제는 언제나 존재해 왔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으며, 언제까지나 인간의 성적인 진화의 이상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진정한 한 쌍의 결혼에 대한 이 이상(理想)은 자아-부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하는 상대방의 하나 또는 둘 모두가 모든 인간적 덕행, 고된 자아-통제의 정점에 이르지 못해, 너무 자주 실패된다.

83:6.7 (927.8) 일부일처제는, 순전히 생물학적인 진화로부터 구별되는 사회적인 문명이 진보되는 정도의 척도이다. 일부일처제는 반드시 생물학적이거나 자연적일 필요는 없지만, 사회적인 문명의 즉각적인 보존과 더 향상된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그것은 정서의 섬세함과, 도덕적 성격의 세련됨, 그리고 일부다처제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영적 성장에 기여하였다. 한 여인이 자기 남편의 애정을 얻기 위하여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동안에는 이상적인 어머니가 결코 될 수 없다.

83:6.8 (928.1) 한 쌍의 결혼은, 부모의 행복과 자녀의 복지 그리고 사회적인 능률을 위하여 최선의 방책인 긴밀한 납득과 효과적인 협동을 선호하고 육성시킨다. 노골적인 강요에서 시작된 결혼은 점차적으로 진화하여 자아-수양, 자아-통제, 자아-표현, 그리고 자아-영속이라는 훌륭한 제도로 변화하였다.

제 7 장. 혼인의 해체

83:7.1 (928.2) 결혼 사회관례의 초기 진화에서는, 결혼은 뜻대로 끝낼 수 있는 느슨한 연합이었고, 자녀들은 언제나 어머니를 따랐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결속은 본능적인 것이었고 사회관례에서의 발달단계에 상관없이 기능해 왔다.

83:7.2 (928.3) 원시 민족들 사이에서는 대략 절반 정도의 결혼만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 헤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아이를 못 낳는 것이었고, 그것은 항상 아내에게 책임이 돌아갔으며; 아이를 갖지 못한 아내들은 영의 세계에서 뱀이 된다고 믿었다. 보다 더 원시적인 사회관례 밑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선택권이 남자에게만 주어졌으며, 이러한 기준은 어떤 민족들 사이에서 20세기까지도 유지되어 왔다.

83:7.3 (928.4) 사회관례가 진화하면서, 어떤 부족들은 두 가지 형태의 결혼을 발전시켰는데: 이혼을 허용하는 평범한 것과,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성직자 결혼이 있었다. 아내를 구매하는 것과 아내의 결혼 지참금이 결혼 실패에 대한 벌금으로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헤어지는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현대의 많은 연합들은 이러한 구식(舊式)의 재산 요소에 의해서 안정을 이룩하였다.

83:7.4 (928.5) 공동체 신분에서의 사회적 압력과 재산의 특권은 결혼에서의 금기와 사회관례를 유지하는 데 늘 효력이 있었다.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결혼은 꾸준한 진보를 이룩하였고 현대 세계의 향상된 기초위에 놓여있다, 비록 그것이 개별적 선택—새로운 해방—이 가장 크게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들 안에 널리 퍼진 불만으로

말미암아 위협적으로 맹렬하게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있다. 좀 더 진보적인 종족 안에서 갑작스레 가속화된 사회 진화의 결과로서, 이들에 대한 조절의 격변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조금 적게 향상된 사람 사이에서는 결혼이 옛 시절 사회관례의 안내 밑에서 계속하여 성장하며 천천히 개선되고 있다.

83:7.5 (928.6) 결혼에 있어서, 보다 더 구식(舊式)이고 오랫동안 확립되어 온 소유 본능의 동기 대신에, 더욱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극도로 개별존재적인 사랑의 동기로 새롭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대치됨으로써, 결혼 제도가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람의 결혼 동기는 언제나 실재적인 결혼 윤리를 훨씬 초월하였으며, 19세기와 20세기에 있어서 서방의 결혼에 대한 이상(理想)은 갑작스럽게 도가 지나친 자아-중심적으로 흘렀지만, 부분적으로는 그 종족들의 성적 충동에 의해서 통제되었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많은 현존이 사회관례의 일시적인 붕괴 또는 과도기에 있음을 나타낸다.

83:7.6 (928.7) 지나온 모든 시대에서 결혼에 대한 실제적 시험은, 모든 가정생활에서 피해질 수 없는 지속적인 친밀성이었다.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고 허영심과 자기를 충분히 충족시키도록 교육받은, 마음대로 행동하고 버릇없는 두 젊은이에게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일—자아-양보, 타협, 헌신, 자녀 육성에 이타적으로 전념하는 것—에서 크게 성공하리라는 기대를 거의 가질 수 없다.

83:7.7 (929.1) 구혼(求婚)의 단계로 들어가는 높은 정도의 상상력과 환상적인 낭만은, 현대의 서방 민족들 사이에서 이혼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주요 원인이며, 그 모든 것은 여인들의 과도한 개인적 자유와 증대되는 경제적 해방에 의해서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자아-통제의 결핍과 정상적인 개인성 조절의 실패의 결과로 나타나는 쉬운 이혼은, 극심한 개인적 고뇌와 종족의 고통을 통하여 아주 최근에 사람들이 벗어나게 되었던, 바로 그러한 미숙한 사회적 단계로 곧장 되돌아가게 할뿐이다.

83:7.8 (929.2) 그러나 사회가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한, 사회 계층이 충분한 혼전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 그리고 어리석고 미숙한 젊은이의 이상주의가 결혼을 성사시키는 중재자가 되는 한, 이혼은 계속 유행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 집단이 젊은이들의 결혼을 준비시키지 못하는 한, 이혼은 어느 정도까지는, 진화하는 사회관례가 빠른 속도로 자라 가는 시대 동안에 더욱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막는 사회적 안전장치로 기능해야만 한다.

83:7.9 (929.3) 고대의 사람들은 지금-현재의 일부 민족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결혼을 심각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현대에서의 조급하고 성공하지 못한 결혼 대부분이, 결혼을 위하여 젊은 남녀에게 자격을 갖추게 하던 고대의 실천 관행보다 크게 개선된 점이 보이지는 않는다. 현대 사회의 심한 모순은, 사랑을 고귀하게 여기고 결혼을 이상화 시키면서도, 한편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시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 8 장. 결혼의 이상화(理想化)

83:8.1 (929.4) 가정으로 절정을 이루는 결혼은 정말로 사람의 가장 고상한 제도이지만, 그 본질은 인간적인 것이다; 결혼은 결코 신성한 약속으로 부르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다. 셋 자손 사제들이 결혼을 종교 의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에덴 이후 수천 년 동안, 짝을 맺는 일은 순전히 사회적이고 시민적인 제도로 계속되었다.

83:8.2 (929.5) 인간적인 관계적-연합들을 신성한 관계적-연합들에게 연결시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다. 결혼-가정 관계 속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진화하는 세계들 속에 있는 필사자들의 물질적인 기능이다. 정말로, 대부분의 영적 진보가 진보를 위한 남편과 아내의 진지한 인간적 노력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혼이 반드시 신성시되어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적인 진보는 인간 노력에서의 다른 큰길에 진지하게 몰두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따라온다.

83:8.3 (929.6) 결혼은 조절자와 사람 사이의 관계에 정확하게 비교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 미가엘과 그의 인간 형제들 사이의 형제우애관계에도 비교될 수 없다. 그러한 관계들은 어떤 점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그러한 관계적-연합과 비교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것은, 이러한 관계성들에 대한 인간의 오해가 결혼의 의미에 너무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83:8.4 (929.7) 어떤 필사자 집단들이 결혼을 신성한 행동에 의해서 더할 나위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역시 불행한 일이다. 그러한 신념들은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의 환경이나 바람에는 상관없이 결혼한 상태의 영구성(永久性)에 대한 개념을 직접적으로 유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혼이 괴멸된다는 사실 바로 그 자체가, 신(神)이 그러한 연합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아님을 나타낸다. 만일 하느님께서 어떤 두 가지 사물들 또는 사람들과 일단 함께 하셨다면, 신성한 뜻이 그들의 분리를 선언할 때까지 그들은 그러한 연합된 상태로 남아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제도인 결혼의 경우를 볼 때, 과연 누가 재판자리에 앉아서, 어떤 결혼이 본질적으로 그리고 기원적으로 순전히 인간적이며, 그에 비하여 어떤 결혼이 우주의 감독들로부터 허락을 받으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83:8.5 (93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높은 곳의 구체에서는 결혼에 대한 이상(理想)이 있다. 각각의 지역 체계의 수도에서는, 결혼이라는 인연 속에서 그리고 자손들을 낳고 기르는 목적을 위하여, 하느님의 물질아들들과 딸들이 남자와 여자의 가장 이상적인 연합에 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 결국, 필사자의 이상적인 결혼은 인간적으로 신성하다.

83:8.6 (930.2) 결혼은 언제나 현세적인 이상향에 대한 사람의 최극의 꿈이었으며 현재도 여전히 그렇다. 비록 이러한 꿈이 전반적으로 실현되는 일은 드물지만, 그것은 영광스러운 이상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 더 큰 분투로 전진하도록 인류를 항상 불러들이는 것으로서 지속된다. 그러나 젊은 남자와 여자들은, 가정생활의 상호-연관에 따른 고된 요구사항들에 빠지기 전에 결혼의 실체에 관한 어떤 것들을 배워야만 한다; 젊은이다운 이상화는 어느 정도의 혼전(婚前) 환멸감으로 조절되어야만 한다.

83:8.7 (930.3) 그렇지만 결혼에 대한 젊은이들의 이상화가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꿈들은 가정생활의 장래 목표를 그려보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만약에 그것이 결혼과 그 뒤에 이어지는 가정생활이 실천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의 실현에 대하여 둔감하게 되지만 앓는다면, 모두 자극이 되는 것인 동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결혼에 대한 이상(理想)들은 최근에 들어서 크게 진보하였다; 일부 민족들 중에는 여자가 그 배우자와 실천적으로 동등한 권한을 누리고 있다. 가정은, 최소한 개념적으로는, 성적(性的)인 성실성과 함께, 후손들을 기르기 위한 충실한 협력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다 새로운 형태의 결혼이라 해도, 모든 개인성과 개별존재성에서의 쌍방 간의 독점권을 부여할 만큼 극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결혼은 개별존재적인 이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진화하는 사회적 협동체이며, 현재의 사회관례 아래에서 존재하고 기능하며, 금기들에 의해 규제되고, 사회의 법과 규칙에 의해서 시행된다.

20세기에 이루어지는 결혼들은 과거 시대의 것들과 비교할 때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관한 제도는 현재 심각한 시험 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자의 해방, 지난 세대들의 사회관례의 느린 진화 속에서 매우 오랫동안 부인되었던 권리가 다급하게 증강됨으로써 그 문제들이 사회 조직 속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밀려나오기 때문이다.

83:8.10 (930.6) [유란시아에 배치된 세라핌천사 우두머리에
의해서 제시되었음]

제 84 편 결혼과 가족 일생

84:0.1 (931.1) 결혼은, 물질적인 필요성에 의해 성립되었고, 성적
욕구에 의해 미화(美化)되었으며, 종교에 의해 인정되면서
강화되었고, 국가에 의해 요구되고 규제되었으며, 반면에
후대에는 진화하는 사랑이, 문명의 가장 유용하고 탁월한
제도인 가정의 조상과 창조자로서 결혼을 정당화시키고
찬미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일은 모든
교육적 노력의 중심과 본질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84:0.2 (931.2) 짝을 짓는 일은 변화하는 자아-충족의 정도에 따른
순수한 자아-영속의 행동이다; 가정을 이룩하는 결혼은
주로 자아-유지의 문제이며, 그것은 사회의 진화를
내포한다. 사회 자체는 가족 단위들이 집합된 기구이다.
개별존재들은 행성에서의 요소들로서 매우
일시적이다—오직 가족들만이 사회 진화에 있어서 계속
존재하는 대리자이다. 가정은 문화와 지식의 강이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통로이다.

84:0.3 (931.3) 가정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제도이다. 결혼은 자아-유지 속에서의 협동과 자아-영속 속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자라났으며, 자아-충족의 요소는 주로 부수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세 가지 기능들 모두를 포함하며, 반면에 생명 번식은 그것을 근본적인 인간 제도로 만들고, 성(性)은 그것을 다른 모든 사회적 활동들로부터 구별되게 한다.

제 1 장. 원시적인 부부 관계적-연합

84:1.1 (931.4) 결혼은 성적인 관계들을 기초로 하지 않았고; 그것으로부터 부수적으로 일어났다. 원시인들은 결혼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아내와 자녀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의무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성(性) 욕망을 만족시켰다.

84:1.2 (931.5) 여인은 자기 자녀에게 육신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애착을 갖기 때문에, 남성과의 협동에 의존하며, 이러한 것이 그녀로 하여금 결혼이라는 보호 장치 속으로 들어가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어떤 생물학적 충동도 남자를 결혼하도록 유도하지 않았다—그를 가두어 두는 힘이 훨씬 약하였다. 결혼이 남자에게 매력을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음식에 대한 갈망이었으며, 그것이 원시인들로 하여금 여자에게 그리고 그 여자와 자녀들이 공유하는 원시적인 은신처에 매력을 갖게 하였다.

84:1.3 (931.6) 결혼은 성(性) 관계에서의 책무들에 대한 의식적인 실현에 의하여 발생한 것도 아니었다. 원시인은 성적 즐거움 및 그 이후의 결과로서 태어나는 자녀 사이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 처녀도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한 때 전체적으로 퍼져 있었다. 원시인들은 초기에는 아기들이 영적인 나라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였다; 임신은 진화하는 귀신인 어떤 영이 여자에게 들어간 결과라고 믿었다. 불길한 눈과 음식물 역시 처녀 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 임신시킬 수 있다고 믿었으며, 반면에 후대에는 생명의 시작을 호흡과 그리고 햇빛과 관련시키는 믿음들이 있었다.

84:1.4 (932.1) 초기 민족들 대부분은 귀신들을 바다와 연관시켰으며; 그래서 처녀들은 목욕하는 실천 관행에 있어서 크게 제한을 받았다; 젊은 여자들은 성(性) 관계들을 갖는 것보다도 밀물 때에 바다에서 목욕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하였다. 불구자로 태어난 아기들 또는

조산된 아기들은, 부주의한 목욕 또는 심술궂은 영이 활동한 결과 때문에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올 길을 발견한 동물들의 새끼로 간주되었다. 당연히, 야만인들은 그러한 자손이 태어나자마자 목을 졸라서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였다.

84:1.5 (932.2) 임신시키는 귀신이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오도록 성적인 관계에 의해서 길이 열린다는 믿음이, 깨우침의 첫 단계가 되었다. 그 후로 사람은,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살아있는 유전적 요소들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이 기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심지어는 20세기에 이르러서도,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인간 생명의 기원에 대해 다소 무지한 상태에서 자기 자녀들을 기르려고 한다.

84:1.6 (932.3) 다소 단순한 종류의 가족은 아이를 낳는 기능이 어머니와-자녀 관계를 일으킨다는 사실로서 지켜지게 되었다. 모성애는 본능적이다; 그것은 결혼이 그런 것처럼 그런 사회관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모든 포유동물의 모성애는 지역우주의 보조 마음-영들의 선천적

수여자질이며, 그 강함과 헌신의 정도는 그 종(種)의 어떤 도움도 없는 유아기의 길이와 항상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84:1.7 (932.4)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자연적이고 강력하고 본능적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원시 시대의 여인들로 하여금 수많은 생소한 상황들을 받아들이게 하였고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강제적인 모성애는, 남자와의 모든 투쟁에 있어서 여자에게 항상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감정적 방해요소가 되었다. 그러한 경우에도, 인간 종족 속에 있는 어머니로서의 본능은 저항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야심과 이기주의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방해될 수도 있었다.

84:1.8 (932.5)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관계적-연합은 결혼도 아니고 가정 자체도 아니었지만, 그 두 가지가 발생되는 데 있어서 핵(核)의 역할을 하였다. 짝짓기의 진화에 있어서의 큰 진보는, 이러한 임시적 협력체가 결과적으로 생긴 자손을 기르기에 충분할 정도로 오래 지속될 때 이루어졌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가정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84:1.9 (932.6) 이러한 초기 부부들의 반목을 일으키는 관계와는 상관없이, 그 관계적-연합의 느슨함에도 불구하고, 생존 기회는 이러한 남녀 간의 협동체에 의해서 크게 증진되었다. 가족과 자손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협동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두 남자들 또는 두 여자들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우월하다. 이성(異性)간에 짝을 짓는 이러한 일은 생존 능력을 증대시켰고 인간 사회의 첫 걸음이 되었다. 성(性)에 따른 노동의 구분 역시 편안함을 제공하였고 행복을 증대시켰다.

제 2 장. 초기의 모계(母系)-가정

84:2.1 (932.7) 여자의 주기적인 출혈과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흘리는 많은 피로 인하여, 피가 아기의 창조자라는 (심지어는 혼의 근원이라는) 추측이 초기 시대부터 이루어졌으며, 인간적 관계들에 있어서 혈연-동맹이 기원되었다. 초기 시대에는 모든 후손들이 여자의 계통을 따라 계수 되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유전적 관계였다.

84:2.2 (932.8)

어머니와 자녀의 본능적인 생물학적 혈연 동맹으로부터 자라났던 원시적인 가족은 필연적으로 모계-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많은 부족들은 이러한 체제를 오랫동안 고수하였다. 모계-가정은 유목민 집단 속에서의 집단적 결혼 단계로부터 일부다처제와 일부일처제의 부계(父系)-가정들에 해당하는 후대의 개선된 가정생활의 단계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가능하였던 과도기적 형태였다. 모계-가정은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이었다; 부계-가정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이며 정치적이었다. 북아메리카 적색 인종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모계-가정은 이로쿼이족이 실제 국가 형태를 이루지 못하게 만든 주요 이유들 중의 하나였다.

84:2.3 (933.1)

모계-가정의 사회관례 아래에서는 아내의 어머니가 집안에서의 실질적인 최극 권한을 누렸으며; 가족을 감독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내의 남자 형제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남편보다 더 활동적이었다.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들이 태어난 후에 종종 이름이 바뀌곤 하였다.

84:2.4 (933.2) 가장 초기의 부족들은 아버지의 공적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고, 자녀는 전적으로 어머니로부터 출생된 것으로 여겼다. 그들은 같이 살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는다고 믿거나, 또는 어머니가 그들로 하여금 그 아버지를 닮게 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받았다"고 믿었다. 후대에 이르러서, 모계-가정이 부계-가정으로 전환된 후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낳은 모든 공적을 가졌으며, 임신한 여인에 대한 많은 금기들은 나중에 더 확장되어 그녀의 남편도 포함시키게 되었다. 아버지가 될 사람은 출산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일을 멈추었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내와 함께 침실로 들어가서 3일내지 8일 동안 휴식을 취하였다. 그 아내는 다음 날부터 일어나 어려운 일을 시작하였지만; 남편은 계속 침실에 남아서 축하 인사를 받았다; 이 모든 것은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를 세워주기 위해 고안된 초기 사회관례의 일부분이었다.

84:2.5 (933.3) 처음에는 남자가 자기 아내의 족속에게로 가는 것이 관례였지만, 후대에 이르러서는 남자가 신부에 대한 값을 지불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노동을 마친 후에는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본래의 자기 족속에게로 데려올 수 있게

되었다. 모계-가정으로부터 부계-가정으로의 변환은, 똑같은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허용하면서 사촌끼리 결혼하는 어떤 유형들은 금지하는, 어떤 면에서 무의미한 일들을 설명해 준다.

84:2.6 (933.4) 사냥하는 단계가 지나가고 목축하는 일이 시작되면서 사회관례에 의해 음식 공급 통제가 남자에게 넘겨지자, 모계-가정은 급속도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것이 사라진 단순한 이유는, 보다 새롭게 형성되는 부계-가정과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남자 친척들에게 주어진 힘으로는 남편-아버지에게 집중된 힘과 경쟁할 수 없었다. 여자들은 계속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가정의 힘을 키우는 일과 자녀를 키우는 복합적인 임무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새로 나타나는 아내 흠치기와 후대에 이루어진 아내 구매(購買)는 모계-가정이 사라지도록 재촉하였다.

84:2.7 (933.5) 모계-가정으로부터 부계-가정으로의 엄청난 변화는, 인간 종족에 의해서 이제까지 수행되었던 가장 급진적인 그리고 완벽하게 180도 방향이 전환되는 조절들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변화는 즉시 더 많은 사교적인 표현과 증진된 가정적 모험을 유도해 내었다.

제 3 장. 아버지가 지배하는 가정

84:3.1 (933.6)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여자로 하여금 결혼하도록 유도하였겠지만, 여자들이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도록 실질적으로 강요한 것은, 사회관례의 영향과 함께 남자의 우월한 체력이었다. 목축 생활은 새로운 사회관례 체계, 가부장(家父長)적 유형의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이바지하였다; 목축업과 초기 농업의 사회관례 밑에서 이루어진 가족 합일의 기초는, 명백하고 독단적인 아버지의 권위였다. 국가적인 것이든지 또는 가족적인 것이든지, 모든 사회는 가부장적 체제의 독재적인 권위의 단계를 거쳤다.

84:3.2 (934.1) 구약 성서 시대 동안에 여성을 거의 대우하지 않은 것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의 사회관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히브리의 족장들은, “주님은 나의 목자(牧者)이시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목축업자들이었다.

84:3.3 (934.2) 그러나 지나간 시대들에 있어서 여자들이 낮게 취급된 것은 남자들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여자들 자신 때문이었다. 여자들은 원시 시대 동안에 사회적인 명성을 얻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위기 상황에 있어서 기능을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극적인 영웅 또는 위기 상황에서의 영웅이 되지 못하였다. 모성애는 생존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이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부족을 방어함에 있어서 여자들에게 방해적인 요소였다.

84:3.4 (934.3) 또한 원시시대의 여인들은 남자의 호전성과 정력에 대하여 감탄하고 칭찬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그들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전사들에 대한 이러한 찬미는 남성의 자기를 높여준 반면, 여성의 자기는 그만큼 억눌렸고, 여자들이 더욱 종속되도록 만들었다; 군인들의 제복은 여전히 여성들의 감정을 강력하게 휘젓는다.

84:3.5 (934.4) 더욱 진보된 종족들 사이에서는, 여자들은 남자들만큼 크지도 강하지도 않다. 여자들은 더 약해졌기 때문에 더욱 약삭빠르게 되었다; 성적인 매력을 이용하는 방법을 일찍부터 익혔다. 여자는 남자보다 약간 생각이 덜

깊지만, 더 기민하고 보수적이 되었다. 전쟁터와 사냥터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지만; 가정에서는 가장 원시적인 남자들이라도 대개 술책으로 이길 수 있다.

84:3.6 (934.5) 목축을 하는 남자들이 자기 가축들을 식용으로 키웠지만, 이러한 목축 시대 전체 동안에 여자들은 여전히 채소를 양식으로 공급해야만 하였다. 원시 시대의 남자들은 흙을 멀리하였다; 흙은 전적으로 너무 평화롭고 너무 모험심이 없는 것이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식물을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미신 개념이 있었는데; 그들이 낱아서 키우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에도 발달하지 못한 많은 부족들 사이에서는, 남자들이 고기를 요리하고, 여자들은 채소를 요리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시 부족들은 행진할 때 여자들이 결코 경기를 비난하지 않으며, 반면에 남자는 구부리고 앉아서 뿌리를 뽑지 않는다.

84:3.7 (934.6) 여자들은 항상 일을 했어야만 하였다; 적어도 현대 시대까지 여자들은 실제적인 생산자 역할을 해왔다. 남자들은 대개 보다 쉬운 길을 선택해 왔으며, 이러한 불평등은 인간 종족의 전체 역사상 항상 존재해 왔다.

여자들은 항상 무거운 짐을 져왔는데, 가정의 재산을 획득하고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남자들이 일에 매이지 않고 싸움을 하거나 사냥을 할 수 있게 하였다.

84:3.8 (934.7) 여자들의 첫 번째 해방은 남자들이 땅을 경작하는 일을 동의하였을 때, 그 당시까지는 여자들의 일로 간주되어 왔던 것을 하겠다고 동의하였을 때 도래하였다. 포로들 중에서 남자를 더 이상 죽이지 않고 그 대신에 농사를 짓는 노예로 삼게 된 것은 엄청난 발전이었다. 이것이 여자들을 해방시켜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게 하였다.

84:3.9 (934.8) 어린아이들에게 우유를 공급함으로써, 보다 일찍 유아들에 대한 젖을 뗄 수 있게 되었고, 그리하여 어머니들은 더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게 됨으로써 언젠가 덧없이 찾아오는 출산 능력을 잃어버리는 걱정으로부터 풀려난 동시에, 소와 염소의 젖을 이용함으로써 유아 사망률이 크게 줄어들었다. 목축을 하는 사회적 단계 이전에는, 자기 아이들이 네 살 또는 다섯 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들이 돌보곤 하였다.

84:3.10 (934.9) 원시 시대의 전쟁이 크게 줄어들으로써, 성에 따른 노동의 불균형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여자들은 남자들이 보초를 서는 동안 여전히 실제적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야영지 또는 마을은 밤이나 낮이나 보초를 세워야만 하였지만, 이러한 임무도 개를 길들임으로써 완화되었다. 일반적으로는, 농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여자들의 위신과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남자들 자신이 농사꾼으로 전환될 때까지 진정으로 별어진 일이었다. 그리고 남자들이 땅을 경작하는 일에 참여하는 즉시로 농업 기술이 곧 크게 개선되었고 세대가 바뀌면서 더욱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남자들은 전쟁과 사냥을 통하여 조직의 가치를 배웠고, 이러한 기법을 산업에 적용하였으며, 그 후에 여자들의 일을 많이 떠맡게 된 후에는 그 동안의 산만하였던 노동 체계가 크게 개선되었다.

제 4 장. 초기 사회 속에서의 여자들의 지위

84:4.1 (935.1)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시대 동안에든지 여자들의 지위는 결혼이 사회적 제도로써 진화 발전하는데 대한 적절한 기준인 반면, 결혼 자체의 발전은 인간 문명 진보 정도를 가리키는 상당히 정확한 계량기이다.

84:4.2 (935.2) 여인들의 지위는 언제나 사회적인 모순이었다;

여자는 항상 남자들을 약삭빠르게 조종해 왔으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 항상 남자의 강력한 성적 충동을 이용해 왔다. 여자는 자신의 성적 매력으로 미묘하게 거래함으로써, 남자를 지배하는 힘을 종종 발휘해 왔는데, 심지어는 비천한 노예로 그에게 소속된 경우에도 그러하였다.

84:4.3 (935.3) 초기 시대의 여자는 남자에게 친구와 연인 그리고

동반자라기보다는 재산 목록의 일부, 종 또는 노예였으며, 나중에는 경제적인 동반자와 노리게 그리고 아이를 낳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성적 관계는 여자에 의한 협동과 선택이라는 요소를 항상 필요로 하였으며, 이것 때문에 총명한 여자들은 여성으로서의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자신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지위에 언제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여자들이 자신들의 속박을 완화하려는 노력에서, 기민함에 계속 의존하도록 내내 강제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남자들의 불신과 의심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84:4.4 (935.4) 성은 서로를 납득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주었다. 남자는 여자를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의심과 경멸로 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례한 불신과 심한 매혹이 이상하게 혼합된 존재로 간주하였다. 부족과 종족의 많은 전통들이 고난을 이브, 판도라, 또는 어떤 다른 대표적인 여성들에 관련지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여자가 남자에게 죄악을 범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되도록 항상 왜곡되었다; 이 모든 것은 여자를 한 때 보편적으로 불신하였던 적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사제들이 독신주의를 지지한 이유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자를 천하게 여기는 것이었다. 가장 소문난 무당들이 여자들이었다는 사실이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평판을 개선시키지 않았다.

84:4.5 (935.5) 남자들은 오랫동안 여자들을 기묘한 존재로, 심지어는 비정상적인 존재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여자들에게는 혼이 없다고 생각하기까지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다. 초기 시대 동안에는 여자와의 첫 번째 성 관계에 대한 큰 두려움이 존재했다; 그리하여 처녀로 하여금 사제(司祭)와 첫 번째

성교를 갖도록 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심지어는 여자의 그림자가 위험스러운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였다.

84:4.6 (935.6) 아이를 낳는 일이 여자를 위험스럽고 부정한 존재로 만든다는 생각이 한 때 일반적으로 퍼져 있었다. 그리고 많은 부족의 사회관례들은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정결 예식에 참여하도록 규정하였다. 해산하는 현장에 남편이 참여하도록 하는 집단들 이외의 경우에는, 아이를 낳게 된 여자를 회피하였고 따로 혼자 있게 하였다. 고대의 사람들은 집안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침내는, 해산하는 기간 동안 할머니들이 산모를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러한 실천 관행에 의해 전문적인 산파술이 기원되었다. 해산하는 동안에는 분만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련스러운 일들을 말하고 행하였다.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는 귀신의 간섭을 막기 위해 성수(聖水)를 뿌리는 것이 관습이었다.

84:4.7 (935.7) 피가 섞이지 않은 부족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낳는 일이 비교적 수월하여 두 세 시간이면 충분하였다; 피가 섞인 종족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쉬운 경우가 드물었다.

만약에 여자가 아이를 낳다가 죽으면, 특별히 쌍둥이를 낳다가 그렇게 되면, 그 여자가 영적인 간음의 죄를 범했던 것으로 믿었다. 후대에 이르러서, 비교적 발달된 부족들은 아이를 낳다가 죽은 경우를 하늘의 뜻으로 간주하였고; 그러한 산모들은 숭고한 목적 때문에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84:4.8 (936.1) 신체를 드러내는 것과 의복에 관계되는 소위 여인들의 정숙함은, 월경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 것에서 연유되었다. 그것이 발견되는 것은 중대한 죄, 금기에 대한 위반이었다. 옛날의 사회관례 밑에서는, 사춘기로부터 출산 가능한 기간이 끝나는 나이까지의 모든 여자들은 매 달마다 1주일씩 가족들과 공동체로부터 충분히 격리되어 있어야만 하였다. 그 기간에 있는 여자가 만지거나 앉거나 또는 누웠던 모든 것들은 "부정(不淨)"한 것으로 여겨졌다. 매 달마다 그 기간이 끝난 소녀들은 그녀의 몸에서 악령을 추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심한 매를 맞는 것이 오랫동안의 관습이었다. 그러나 출산할 수 있는 연령이 지난 여인의 경우에는, 대개 상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보다 많은 특권과 권리가 주어졌다. 이러한 모든 관점에서

본다면 여자들이 경멸의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심지어 그리스인들도 월경 기간에 있는 여자를 세 가지 큰 오염원인들 중의 하나로 간주하였는데, 다른 두 가지는 돼지와 마늘이었다.

84:4.9 (936.2) 이러한 옛날 통념들이 아무리 어리석은 것이었어도, 그들은 과중한 일을 부과하였던 여자들에게 어느 정도 좋은 일을 하였는데, 적어도 나이가 어렸을 때에는 매 달 1주일씩 휴식을 즐기면서 유익한 명상에 잠길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머지 시간에 자신들의 남자 연관-동료들을 다루기 위한 자신들의 재치를 날카롭게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여인들의 격리 기간은 남자들로 하여금 과도한 성적 탐닉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하였으며, 그리하여 간접적으로는 인구 증가 억제와 자아-통제의 증진에 기여하였다.

84:4.10 (936.3) 남자가 자기 아내를 뜻대로 죽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큰 진보가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결혼 예물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한 단계 더 진보되었다. 나중에는 여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통제하며 처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도 획득하게 되었지만, 교회에서 또는 관청에서

직책을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오랫동안 허용되지 않았다. 여자들은 그리스도 이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20세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항상 재산으로 취급되어 왔다. 여자들은 아직도 남자들의 통제 아래에 틀어박힌 상태로부터의 자유를 전(全)세계적으로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심지어는 상당히 진보된 민족들 사이에서도, 여자를 보호하려는 남자의 의도가 자기들의 우월성을 항상 암시적으로 주장해 왔다.

84:4.11 (936.4) 그러나 원시 시대의 여인들은, 아주 최근에 해방된 여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는 달리, 자신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상당히 행복하였고 만족하였다; 보다 나은 또는 전혀 다른 생활양식을 감히 상상하지 않았다.

제 5 장. 발전하는 사회관례 밑에서의 여자

84:5.1 (936.5) 자아-영속에서는 여자는 남자와 동일하지만, 자아-유지를 위한 동반자 관계에서는 여자들이 분명하게 불리한 일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머니로서의 강제적인 불리한 조건은 진보되는 문명의 깨우친 사회관례에

의해서 그리고 공정성 인정에 대한 남자들의 증가되는 감각으로 보상될 수밖에 없다.

84:5.2 (936.6) 사회가 진화하면서, 여성들이 성(性)에 대한 사회 관례를 위반한 결과로부터 더욱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여성들 사이에서 성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갔다. 남자의 성에 대한 기준은, 문명이 요구하는 공정성에 대한 미약한 인식의 결과로, 오직 내키지 않는 상태에서 개선되고 있을 뿐이다. 자연의 법칙은 공정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자연은—여자 혼자서 아이 분만의 고통을 겪게 만든다.

84:5.3 (936.7) 성적 평등에 대한 현대의 관념은 확대되는 문명의 아름답고 훌륭한 면이기는 하지만, 자연의 법칙에 기초를 둔 것은 아니다. 힘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남자가 여자 위에 군림하였다; 더 많은 공의(公義)와 평화 그리고 공평성이 우세해진 후에는 여자가 노예 신분과 미천한 상태로부터 점차적으로 벗어나게 된다.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어느 민족 또는 어느 시대에 있어서든지 대개 군국주의의 정도와 반대되는 만큼 변화된다.

84:5.4 (937.1) 그러나 남자가 여자의 권리들을 빼앗은 것은 의식적(意識的)인 것이 아니었고 고의적인 것도 아니었으며, 그 후에는 점차적으로 그리고 마지못해 그것들을 여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사회적 진화에 있어서의 무의식적이고 무계획적인 에피소드이었다. 추가된 권리들을 여자가 실제로 누리게 되었을 때에는, 남자의 의식 태도에는 전혀 상관없이 여자들이 그것들을 취하였다. 끊임없는 문명 진화의 일부분인 그러한 사회적 조절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관례들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되고 있다. 앞서 나가는 사회관례들은 여성에 대한 보다 나은 대우를 점점 더 많이 제공하였다;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잔인하게 대하는 부족들은 살아남지 못하였다.

84:5.5 (937.1) 아담-사람들과 낫-사람들은 여자들을 점점 더 많이 인정하였으며, 이주하는 안드-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그러한 집단들은 사회에 있어서의 여자들의 지위에 관한 에덴의 가르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여 왔다.

84:5.6 (937.1)

초기 시대의 중국인들과 그리스인들은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민족들보다 낮게 여자들을 대우하였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그들을 매우 의심하였다. 서방에서는, 그리스도교가 보다 엄중한 성적 의무들을 남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사회관례를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에 첨부되어진 바울의 교리들 아래에서 여자에 대한 지위 향상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자의 생활 상태는, 마호멧교에서 여자에게 부과된 색다른 퇴보 아래에서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으며, 다른 몇몇 동방 종교들의 가르침 아래에서 훨씬 악화된 상태로 살고 있다.

84:5.7 (937.1)

종교가 아니라 과학이 실제로 여자를 해방시켰으며; 가정에 묶여있는 상태로부터 여자를 크게 자유화시킨 것은 현대의 공장(工場)이었다. 남자의 육체적인 능력은 새로운 생활 체제 속에서는 더 이상 극히 중대한 근본적 요소가 아니며; 과학이 생활환경들을 너무도 많이 변화시켰기 때문에 남자의 능력은 더 이상 여자의 능력에 그렇게 우월하지 못하게 되었다.

84:5.8 (937.1) 이러한 변화들은 가정의 일에 노예가 되었던
상태로부터 여자를 해방시키는 경향을 보였고,
실천적으로 남자와 동등한 정도의 개인적 해방과 성(性)
결정권을 현재 누리고 있을 만큼 여자의 지위가 변경되게
하였다. 한 때는 여자의 가치가 음식을 만드는 능력에
제한되어 있었지만, 발명과 풍부함으로 인하여 여자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우아하고 매력 있는
구체—가 창조되었다. 그리하여 산업은 여인의 사회적
경제적 해방을 위한 무의식적이고 무계획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왔다. 그리고 계시가 완성시키지 못한
것들까지도 진화에 의해 다시 이룩되어 왔다.

84:5.9 (937.1) 사회 안에서의 여자의 위치를 다스리는 불공평한
사회관례로부터 깨우친 국민들의 반응은 그 과격성에
있어서 정말로 격심한 변동을 일으켜 왔다. 산업화된
종족들 사이에서는 여자가 거의 모든 권리들을 받아들여
왔고 군대 봉사와 같은 많은 책무로부터의 면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생존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모든
안락함이 여자의 해방에 이바지해 왔으며, 여자는
일부일처제를 향한 모든 진보들로부터 직접적으로 혜택을
입어 왔다. 사회의 진보적인 진화 과정 안에서, 사회관례의

모든 조절에 있어서 약자들은 항상 불균등한 이익을 얻는다.

84:5.10 (937.1) 한 쌍의 결혼이라는 이상들에 있어서, 여자는 마침내 인정, 존엄성, 독립성, 평등, 그리고 교육을 얻어 냈지만; 여자가 새롭고도 전례가 없는 이러한 모든 성취들이 가치가 있는 것임을 과연 증명할 것인가? 현대의 여인들이 사회적 해방이라는 엄청난 성취와 함께 나태함, 무관심, 불임과 간통으로 응수할 것인가? 20세기인 오늘날, 여자들은 자신들의 오랫동안의 세상 실존에서의 결정적인 시험을 받고 있다!

84:5.11 (938.1) 종족 번식에 있어서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동반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종적 진화를 나타냄에 있어서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진화는 여자의 권리들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점점 더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여성의 권리들은 남성의 권리들과 결코 똑같지 않다. 남자가 여성의 권리 위에서 번영할 수 없는 것처럼, 여자도 남자의 권리 위에서 번창할 수 없다.

84:5.12 (938.2) 남성과 여성은 각자 실존에서의 특유한 구체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그 구체안에서 자신만의 권리를

갖는다. 만약에 여자가 글자 그대로의 남자의 모든 권리들을 누리고자 한다면, 현재 많은 여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아주 최근에 남자들로부터 획득하였던 기사도(騎士道)와 특별한 배려를 동정심도 감정도 없는 경쟁이 조만간 확실하게 대치될 것이다.

84:5.13 (938.3) 문명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는 습성에 있어서의 큰 차이를 한 번도 없앨 수 없었다. 시대가 바뀌면서 사회관례는 변하지만, 본능은 결코 바뀔 수 없다. 타고난 모성애는 산업 사회 속에서 남자의 심각한 경쟁상대가 되도록 여자를 해방시키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남성과 여성은 각자 자기만의 권역, 생물학적인 차이에 의해서 그리고 정신적인 차이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권역 안에서 언제까지나 최극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84:5.14 (938.4) 남성과 여성은 언제나 자기들만의 특별한 구체를 가질 것인데, 그것들은 때때로 서로 중첩되기도 할 것이다. 남자들과 여자들은 오직 사회적으로만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다.

제 6 장. 남자와 여자의 동반적 관계

84:6.1 (938.5) 번식에 대한 충동은 자아-영속을 위하여 틀림없이
남자들과 여자들이 함께 모이게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그들이 같이 상호 협동하는 가운데—가정을 세우는
것—함께 남아 있도록 보장하지 않는다.

84:6.2 (938.6) 모든 성공적인 인간 제도는, 실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작업으로 조절되어온 개인적 관심들의 반목을
포용하고 있으며, 가정을 세우는 일도 예외가 아니다.
결혼은, 가정 설립의 기초가 되는데, 매우 자주 자연본능과
공동체의 접촉을 특징짓게 하는, 적대적 협동을 간직한
최고의 현시활동이다. 충돌은 필연적인 것이다. 짝을 짓는
일은 선천적인 것이다; 자연본성적이다. 그러나 결혼은
생물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것이다. 열정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되는 것을 보장하지만, 그러나 미약한
아버이의 본능과 사회관례가 그들이 함께 하는 것을
유지한다.

84:6.3 (938.7) 실천적인 면에서 본다면, 남성과 여성은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적-연합 속에서 살아가는 동일한 종(種)에서의
뚜렷하게 다른 두 개의 변종이다. 그들의 관점들과 전체
삶의 반응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를

충분히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용력이 전혀 없다.
이성간의 완벽한 납득은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84:6.4 (938.8)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욱 많은 직관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또한 어느 정도는 좀더 적게 논리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여자는 항상 도덕적 기준을-떠맡아 나르는 자였으며 그리고 인류의 영적 영도자였다. 요람을 흔드는 손은 여전히 조용하게 운명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

84:6.5 (938.9)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자연본성, 반응, 관점, 사고(思考)에서의 차이점들은, 염려를 일으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인류에게 매우 유익한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우주 창조체들의 많은 계층이 개인성 현시활동의 이원적(二元的) 위상으로 창조된다. 필사자들과 물질아들들 그리고 아(亞)중간자들 사이에서는 이 차이는 남성과 여성으로 표현된다; 세라핌천사, 케루빔, 그리고 모론시아 동행자들 사이에서는 긍정적 혹은 적극적 그리고 부정적 즉 내향적(內向的)인 것으로 일컬어져 왔다. 그러한 이원적(二元的) 관계적-연합들은,

파라다이스-하보나 체계 속에 있는 어떤 삼원적(三元的) 관계적-연합이 하는 것처럼, 융통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선천적 한계들을 극복한다.

84:6.6 (939.1) 남자들과 여자들은 필사자 생애 속에서뿐만 아니라 모론시아적 생애와 영적 생애 속에서도 서로를 필요로 한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는 관점의 차이들은 첫 번째 삶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지역우주에서의 상승과 초우주에서의 상승 과정 전체에서도 존재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보나에서도, 한 때 남자들과 여자들이었던 그 순례자들은 파라다이스로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서로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최종의 무리단들 속에서도, 창조체는 인간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부르는 개인성 경향의 흔적이 없어질 때까지 변화될 것이다; 인류의 이러한 두 가지 근본적인 서로 다른 이종(異種)들은 서로에게 호기심을 주고, 자극을 주고, 용기를 주고 협조하는 일을 항상 계속할 것이다; 그들은 복잡한 우주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가지각색의 조화우주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일 속에서 상호 의존적으로 협동하게 될 것이다.

84:6.7 (939.2)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충분히 납득하기를 희망할 수는 결코 없는 반면, 그들은 효과적으로 서로를 보완하며, 그리고 협동이 종종 개인적으로 다소간의 반목을 일으키지만, 공동체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결혼은 성(性)의 차이를 완화하도록 고안된 제도이며, 동시에 문명의 지속과 인종(人種)의 재생산을 가져다준다.

84:6.8 (939.3) 결혼은 모든 인간적 제도들의 모체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가정의 설립과 유지를 직접적으로 이룩하기 때문이며, 가정은 사회의 구조적인 기초이기 때문이다. 가정은 자아-유지 기능구조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문명의 사회관례 아래에서 종족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동시에, 아주 만족스러운 어떤 형태의 자아-충족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가정은 사람이 이룩한 가장 순수한 인간적 업적인데,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관계의 진화를 일으키며, 그것을 남편과 아내라는 사회적 관계와 병합하고 있다.

제 7 장. 결혼생활의 이상적인 원리들

84:7.1 (939.4) 남성과 여성이 짝을 이루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고, 자녀들은 자연적인 결과이며, 그리하여 가정은 자동적으로 실존하게 된다. 종족 또는 국가의 가정들이 있는 것처럼, 그것의 사회도 존재한다. 유대 민족들과 중국 민족들의 뿌리 깊은 문화적 안정성은 그들의 가정 집단들의 위력안에 놓여있다.

84:7.2 (939.5)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여자의 본능은 결혼과 원시적인 가정생활을 증진시키는 일에 여자로 하여금 흥미를 갖는 집단이 되도록 협력하였다. 남자는 후대의 사회관례들과 사회적 풍습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뿐이다; 결혼과 가정을 설립하는 일에 흥미를 갖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그것은 성(性) 행동이 그에게 생물학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84:7.3 (939.6) 성적인 결합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결혼은 사회적인 것이며 언제나 사회관례들에 의해서 규제되어 왔다. 사회관례들(종교적, 도덕적, 윤리적)은, 재산과 자부심 그리고 기사도 마음과 함께, 결혼과 가정 제도를 안정화시킨다. 사회관례가 동요될 때마다, 가정-결혼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렸다. 결혼은 이제 소유 단계를 탈피하여 개인적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날에는 여자가 남자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였으며, 같은 이유 때문에 여자가 복종하였다. 그 장점들과는 상관없이, 이러한 체계는 안정성을 제공하였다. 이제는, 여자는 더 이상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새로운 사회관례들이 결혼-가정 제도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어 창발하고 있다:

84:7.4 (939.7) 1. 종교의 새로운 역할—부모의 체험이 필수적이라는 가르침, 조화우주 시민들을 낳는다는 관념, 출산의 혜택에 대한 확대된 납득—아들들을 아버지께 드림.

84:7.5 (940.1) 2. 과학의 새로운 역할—출산은 점점 더 자발적으로, 사람의 통제를 따르게 되었다. 옛날에는 인식 부족 때문에 그것을 위한 모든 욕망들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녀들의 출생이 보장되었다.

84:7.6 (940.2) 3. 쾌락을 주는 매력들의 새로운 역할—이것이 인종적 생존에 새로운 요소를 제공하였다; 옛날 사람은

원하지 않는 아이를 죽였지만; 현대인들은 그러한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한다.

84:7.7 (940.3) 4. 어버이의 본능의 향상. 각 세대는 이제 어버이의
본능이 다음 세대에서의 장래의 부모들, 자녀들의 출산을
보장하기에 충분하게 강하지 않은 그러한 개별존재들을,
인종 번식의 흐름으로부터 배제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

84:7.8 (940.4) 그러나 하나의 제도로서의 가정,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협동체는 보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약 50만 년 전에
달라마시아 시대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안돈과 그의 직계
후손들이 가졌던 일부일처제 실천 관행은 오래 전부터
포기되어 왔었다. 아무튼, 가정생활은 낯-사람들과 그 후의
아담-사람들 시대 이전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되었다.
아담과 이브는 모든 인류에게 영구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며;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남자들과 여자들이
동산에서 협력하며 일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모든
가족들이 원예가가 되는, 에덴의 이상적(理想的)인 원리는
유란시아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관념이었다.

84:7.9 (940.5) 초기의 가정은 노예들을 포함하여, 관계된 작업
집단을 포용하였고, 모두가 한 거처에서 살았다. 결혼과

가정생활은 항상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필요성에서 가깝게 연관되어 있었다. 여자는 항상 개별적인 가족을 원하였고, 결국에는 자기 방식으로 했다.

84:7.10 (940.6) 자손에 대한 사랑은 거의 우주적인 것이고 생존에 있어서 분명히 가치 있는 것이다. 고대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녀의 행복을 위해 어머니의 권리가 희생되었다; 에스키모 어머니는 아직도 자기 아이를 물로 씻는 대신에 혀로 핥아준다. 그러나 원시 시대의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만 먹여주고 돌보아 주었을 뿐이다;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자라나자마자 그들과의 관계를 끊었다. 영구적이고 계속적인 인간적 관계적-연합들은 생물학적인 애정만을 기초로 하여 설립된 적이 전혀 없었다. 동물들은 자기 새끼들을 사랑한다; 사람—문명화된 사람—은 자기 자녀들의 자녀들도 사랑한다. 문명이 발달될수록, 자녀들의 발전과 성공에 대한 부모들의 기쁨이 커지며; 그리하여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새롭고도 더 고상하게 실현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84:7.11 (940.7) 고대의 민족들 사이에서 규모가 큰 가족들이 반드시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요구되었다:

84:7.12 (940.8) 1. 그들은 노동자로서의 가치가 있었다.

84:7.13 (940.9) 2. 그들은 노후대책이었다.

84:7.14 (940.10) 3. 딸들은 곧 팔려나가게 되어 있었다.

84:7.15 (940.11) 4. 가족의 자부심이 이름의 확장을 요구하였다.

84:7.16 (940.12) 5. 아들들은 방어와 보호를 잘 제공하였다.

84:7.17 (940.13) 6.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였다.

84:7.18 (940.14) 7. 어떤 종교들은 자손을 요구하였다.

84:7.19 (940.15) 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아들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항상 최극의 불행으로 여긴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아들들이 죽은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드려줄 것을, 영적인 나라에서 귀신이 진보하는 일에 필요한 희생 제물들을 드리기를 바란다.

84:7.20 (941.1) 고대의 원시인들 사이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단련이 매우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아이는, 동물들에게 그러했던 것 같이, 불순종이 실패나 죽음까지도 의미한다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았다. 어리석은 행위의 자연적인 결과로부터 어린아이를 보호한 것은 문명의 보호 작용이고, 그것은 현대의 불복종에 그렇게 많도록 기여하고 있다.

84:7.21 (941.2) 에스키모 아이들은 거의 단련과 벌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성장하는데 그것은 오직 그들이 천부적으로 유순한 어린 동물들과 같기 때문이다; 적색 인종과 황색 인종의 자녀들도 거의 마찬가지로 유순하다. 그러나 안드-사람 유전자를 가진 인종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조용한 편이 아니며; 더 많은 단련과 억제가 요구되는, 더욱 상상력이 풍부하고 모험심이 강한 아이들이다. 아이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의 현대적인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해서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

84:7.22 (941.3) 1. 심한 종족 혼합.

84:7.23 (941.4) 2. 인공적이고 피상적인 교육.

84:7.24 (941.5) 3. 부모들을 모방함으로써 문화를 획득하는 능력이 아이들에게서 사라짐—부모들이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

84:7.25 (941.6) 가족 단련에 대한 옛 관념은 생물학적인 것이었는데, 부모들이 자녀의 존재들의 창조자라는 실현에서 나와서 성장되었다. 가정생활에 대한 진보하는 이상적(理想的) 원리들은, 어떤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특정한 권리들을 수여하는 대신에 인간 실존의 최극 의무를 의미한다는 개념으로 바뀌도록 인도되고 있다.

84:7.26 (941.7) 문명은 모든 의무들을 부모들이 맡고, 자녀는 모든 권리들을 갖게 되는 것을 중요시한다. 자기 부모들에 대한 자녀의 존중은, 부모가 자기를 만들었다는 생각 속에 내포된 의무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녀를 도와주는 가운데 충실하게 보이는 보살핌과 훈련과 애정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자라난다. 참된 부모는, 현명한 자녀가 이해하고 감사를 느끼게 되는 지속적인 봉사-사명활동에 여념이 없다.

84:7.27 (941.8) 현재와 같은 산업 시대와 도시 시대에서 결혼 제도는 새로운 경제 계통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 가정생활은 점점 더 비용이 드는 반면, 예전에는 하나의 자산이 되곤 하였던 자녀들은 경제적인 부채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문명 자체의 안전성은, 여전히 한 세대가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들의 복지를 위해 투자하려는 기꺼운 마음이 자라나고 있음에 놓여 있다. 그리고 부모의 책임을 국가나 또는 교회에 떠맡기려는 그 어떤 시도도 문명에서의 복지와 발전에 자멸을 초래한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84:7.28 (941.9) 결혼은, 자녀들과 그에 따르는 가정생활과 함께, 인간 자연본성에서 가장 고상한 잠재를 자극하는 동시에, 필사자 개인성에서의 이들 자극적인 속성들을 표현하는 이상적인 큰길을 제공한다. 가족은 인간 종족들의 생물학적 영속을 제공한다. 가정은, 핏줄로 이어진 형제신분의 윤리가, 자라나는 자녀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자연스런 사회 무대이다. 가정은, 모든 사람들 사이의 형제신분을 실현시키는 데 매우 근본적인 요소인 인내와 이타심과 관용과 용서에 대한 수업을 부모들과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형제우애관계의 기본 단위이다.

84:7.29 (941.10) 만일 문명화된 종족들이 안드-사람들의 가정-협의체 실천 관행을 향하여 더욱 일반적으로 되돌아간다면, 인간 사회는 엄청나게 개선될 것이다. 그들은 가부장적 또는 독재적인 형태의 가족 체제를 유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매우 친밀하였고 협조적이었는데, 가정의 모든 일들에 대한 모든 제안과 규정을 자유롭게 그리고 솔직하게 토의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통치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상적으로 형제우애관계를 가졌다. 이상적인 가정에서 자식으로서의 애정과 아버지의 애정은 형제우애적 헌신에 의해서 둘 모두 증강된다.

84:7.30 (942.1) 가정생활은 참된 도덕의 선조, 의무에 대한 충성심 인식의 조상이다. 가정생활의 강제적인 관계적-연합은 다양한 다른 개인성들에게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성을 통하여 개인성을 안정시키고 그것이 자라도록 자극을 준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참된 가정—훌륭한 가정—은 창조자의 자기 자녀에 대한 태도를 아버지의 후대 창조자들에게 현시하는 동시에, 그러한 참된 부모들은 모든 우주적 자녀들에 대한 파라다이스 부모의

사랑을 점점 더 높게 보여주는 긴 과정의 첫 단계를 자기 자녀들에게 나타낸다.

제 8 장. 자아-충족의 위험성

84:8.1 (942.2) 가정생활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자아-충족, 쾌락에 대한 현대적인 열광의 물결이 위협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결혼에 대한 1차적인 유익은 경제적인 것이었고; 성적 이끌림은 2차적인 것이 되곤 하였다. 자아-유지에 기초를 둔 결혼은, 자아-영속을 이룩하였고, 자아-충족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형태들 중의 하나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삶을 위한 큰 동기들 세 가지 모두를 포용하는 인간 사회의 유일한 제도이다.

84:8.2 (942.3) 기원적으로, 재산은 자아-유지의 기본 제도였던 반면, 결혼은 자아-영속의 독특한 제도로써 가능하였다. 흡족한 음식과 놀이 그리고 유머는, 주기적인 성적 탐닉과 함께 자아-충족의 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하는 사회관례가 자아-충족에 대한 어떤 뚜렷한 제도를 형성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 제도가 이러한 쾌락 추구로 너무나 완벽하게 물들어 있는 것은, 만족스러운 기쁨을 줄 수 있는 전문화된 기법을

진화시키지 못한 이러한 실패에 기인한다. 재산 축적은 모든 형태의 자아-충족을 증강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고 있는 반면, 결혼은 오직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종, 널리 퍼진 이러한 즐거움에 대한 열광이 이제는, 가족생활의 사회적 진화 제도인, 가정을 겨냥해 오는 가장 큰 위협을 이루고 있다.

84:8.3 (942.4) 보라색 인종은 하나의 새로운 그리고 오직 불완전하게 실현된 특징을 인류의 체험 속에—유머 감각과 결부된 놀이 본능—도입하였다. 그것은 산적들과 안돈-사람들 속에도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아담의-혈통은 이러한 원시적 성향을 기쁨의 잠재, 자아-충족의 새롭고 영화롭게 된 형태에 이르도록 향상시켰다. 갈망을 만족시켜주는 것을 제외시킨다면, 자아-충족의 기본적인 유형은 성(性) 만족이며, 이러한 형태의 감각적 쾌락은 산적들과 안드-사람들의 피가 섞임으로써 엄청나게 강화되었다.

84:8.4 (942.5) 안드-사람 이후 종족들의 불안감, 호기심, 모험심, 그리고 쾌락-포기 특징의 배합 속에 실제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혼(魂)의 열망은 육체적 쾌락으로 만족될

수 없으며; 가정과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리석은 쾌락 추구에 의해서 증강되지 않는다. 너희는 예술, 색감, 소리, 박자, 음악의 자원들과, 몸을 장식하는 자원들을 소모시킴으로써 영을 살찌게 하거나 혼을 증진시키기를 기대할 수 없다. 허영심과 유행은 가정 설립과 자녀 양육에 공헌할 수 없으며; 자부심과 경쟁심은 다음 세대들의 생존을 위한 본질특성을 증진시켜주는 일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84:8.5 (942.6) 향상되는 천상(天上)의 존재들은 모두 휴식을 즐기며, 복귀 감독자들의 봉사를 즐긴다. 건전한 기분전환을 획득하고 기분을 드높여주는 놀이에 참여하려는 모든 노력은 건전한 것이다; 단조로움에서 나오는 권태감을 막아주는 모든 취미들과 오락과 휴식 그리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수면은 보람 있는 것들이다. 경쟁적인 경기들, 이야기하기, 그리고 심지어는 좋은 음식을 맛보는 것도 자아-충족의 형태들이 될 수 있다. (너희가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낼 때, 거의 100만 년 동안, 사람은 오직 자기 음식을 재속에 넣어두는 방법에 의해서만 소금기를 얻을 수 있었음을,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 보라.)

84:8.6 (943.1)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즐기게 내버려두어라;
인간 종족들이 무수한 방법으로 쾌락을 찾을 수 있게 하라;
진화하는 인류로 하여금 모든 형태의 합리적인 자아-충족,
오랫동안 향상되어 온 생물학적 투쟁의 결실들을
탐구하게 하라. 사람은 지금-현재의 즐거움들과 쾌락들의
일부를 잘 획득하였다. 그러나 너희 운명의 목표를 잘
고려해 보아라! 쾌락들은, 만약에 그것들이 자아-유지의
제도가 되어 오고 있는 소유물을 파괴시키는 일에
성공한다면 정말로 자기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이다;
자아-충족들은, 만약에 그것들이 가정생활의 타락, 결혼의
붕괴와 가정—사람이 획득한 최극의 진화적 성취이며
문명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파괴를 초래하게
된다면, 정말로 치명적인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다.

84:8.7 (943.2) [유란시아에 파견된 세라핌천사 우두머리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85 편 경배의 기원

85:0.1 (944.1) 도덕적인 관계적-연합을 제외하고 그리고 모든
영적 영향을 제외한다면, 원시 종교는 생물학적인 기원,
자연적인 진화로서 발전하였다. 고등 동물은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아무런 환상이 없고 따라서 종교가 없다.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에서부터 그리고 환상의 수단에 의해서 원시 종교들을 창조하였다.

85:0.2 (944.2) 인간 종족들의 진화 과정에서, 원시적인 혼 현시활동 속에서의 경배는 사람의 마음이 종교라고 불릴만한 현세와 내세에 대한 복잡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훨씬 전에 나타났다. 초기의 종교는 자연본성에서 전적으로 지능적인 것이었으며 관계적-연합된 관념들의 환경에 전적으로 기초를 두었다. 경배의 대상은 모든 것이 암시적인 것이었다; 그것들은 손이 미칠 수 있는 자연의 사물 또는 단순-마음을 소유한 원시 유란시아인 들의 평범한 체험 속에서 크게 돋보이는 자연의 사물들로 구성되었다.

85:0.3 (944.3) 종교가 일단 자연 경배의 수준을 넘어서 진화하고 나서, 그것이 영적인 기원의 뿌리를 획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 자연 경배가 발달하자, 사람의 개념은 초(超)필사 세계에서의 노동의 분업을 상상하였다; 그것들은 호수,

나무, 폭포, 비, 그리고 수백 가지의 다른 보통의 지상의
현상에 대한 자연 영들이 있었다.

85:0.4 (944.4) 필사 사람은 한 때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경배하였다. 또한 그는 하늘 위에 그리고
땅의 표면 밑에 있을 것으로 상상되는 모든 것들도
경배하였다. 원시인은 힘이 보이는 모든 현시활동들을
두려워하였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자연 현상들을
경배하였다. 폭풍, 홍수, 지진, 산사태, 화산 폭발, 불, 열,
추위 등과 같은 강력한 자연적 힘들에 대한 관찰은 사람의
확대되는 마음에 엄청나게 인상(印象)을 주었다. 아직도
여전히 삶의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하느님의 활동”
그리고 “신비한 천의(天意)의 섭리들”로 풀이되고 있다.

제 1 장. 돌과 언덕에 대한 경배

85:1.1 (944.5) 진화하는 사람의 최초의 경배 대상은 돌이었다.
오늘날 남부 인도에 사는 카테리 인종은 북부 인도에 있는
여러 부족들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돌을 경배하고 있다.
야곱이 돌 위에서 잔 것은 그가 그것을 숭배하였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그것을 신성시하기까지 하였다.

라헬은 신성시되는 여러 개의 돌들을 자기 천막 속에 간직하였다.

85:1.2 (944.6) 돌은 경작하는 땅이나 또는 목초지의 표면에 갑자기 나타나는 독특한 방식 때문에 초기 시대의 사람에게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땅을 갈아엎은 결과 또는 침식 형상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돌들이 초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던 것은, 그것들이 종종 동물의 형태를 닮았기 때문이었다. 문명화된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킨 것은, 동물들의 얼굴을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의 얼굴을 너무나도 닮은, 산에 있는 수많은 돌들의 형태였다. 그러나 가장 심한 영향을 준 것은, 대기 중에서 장관을 이루는 불꽃을 내면서 어떤 소리와 함께 떨어지는 것이 원시인들에게 목격되었던 운석(隕石)들이었다. 유성은 원시 인간들에게 경이로운 것이었으므로, 그러한 타오르는 광선들이 그 방향을 따라 어떤 영을 지구에 운반하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라고 쉽게 믿었다. 사람들이 그러한 현상을 경배하게 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며, 특히 그들이 나중에 그 운석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모든 돌들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확대시켜 주었다. 벵갈 지역에서는 서기 1880년에 지구에 떨어진 운석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85:1.3 (945.1) 고대의 모든 씨족들과 부족은 신성시하는 돌들을 갖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현대 민족들도 특정한 유형의 돌들—그들의 보석—을 어느 정도 숭배하고 있음을 현시한다. 인도에서는 다섯 개의 돌들로 이루어진 한 묶음을; 그리스에서는 30개로 이루어진 군(群)을 존경하였다; 적색 인종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대개 돌들로 원을 그린 형태이었다. 로마인들은 주피터에게 빌 때에는 항상 돌을 공중으로 던졌다. 인도에서는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돌이 증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돌이 율법의 부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위세로서 위반자는 법정으로 끌려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단순한 필사자들은 존경을 바치는 예식의 대상으로, 신(神)의 정체성을 항상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주물들은 많은 경우에, 경배의 실제 대상의 단순한 상징이다.

85:1.4 (945.2) 고대의 사람들은 돌에 있는 구멍들을 특별하게 여겼다. 그렇게 구멍이 많은 돌은 병을 고치는 효험이 있다고 여겼다. 귀는 돌을 달고 다니려고 구멍을 낸 것이 아니었고, 구멍이 뚫린 채로 계속 있게 하려고 돌을 집어넣었다. 심지어 현대에 이르러서도 미신 믿는 사람들은 동전에 구멍을 낸다. 아프리카에서는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주물인 돌 앞에서 더욱 더 야단법석을 한다. 뒤떨어진 모든 부족들과 민족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돌이 미신 믿는 숭배대상으로 여겨지는 게 사실이다. 돌을 경배하는 것은 지금도 세계에 널리 퍼져있다. 묘비는 죽은 동료 인간들의 영과 귀신을 믿는 것과 관련하여 돌에 새겨진 형상과 우상으로서의 생존한다는 상징이다.

85:1.5 (945.3) 언덕을 경배하는 것은 돌에 대한 경배 이후에 발생되었으며, 숭배 대상이 된 최초의 언덕은 커다란 돌 형성층이었다. 하느님들이 산 속에 거주한다고 믿는 것이 이윽고 관습으로 변하였으며, 그리하여 높이 솟은 땅은 이러한 추가적인 이유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산들은 특정한 하느님들과 연관이 되었고 그리하여 신성하게 여겨졌다. 무지하고 미신적인

원주민들은 동굴이 지하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악한 영들과 마귀들이 있는 것으로 믿었으며, 그와는 대조적으로 산들은 선한 영들과 신(神)들로 나중에 진화되는 개념들과 정체성이 확인되었다.

제 2 장. 식물과 나무들에 대한 경배

85:2.1 (945.4) 식물들은 처음에는 두렵게 여겼고, 나중에는 취하게 하는 액체들이 그것에서 추출되기 때문에 식물을 경배했다. 원시인은 취하는 것은 사람을 신성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그러한 체험은 진귀하고 성스러운 무엇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심지어 현대에도 알코올이 “영(靈)”으로 알려져 있다.

85:2.2 (945.5) 초기 사람은 싹이 돌아나는 낱알을 두려움과 미신 믿는 경외감으로 바라보았다. 싹이 돌아 나오는 낱알로부터 심오한 영적인 교훈을 도출해 내고 그 위에 종교적인 신념의 근거를 두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이 아니었다.

85:2.3 (945.6) 나무를 경배하는 예배종파들은 가장 오래된 종교 집단들에 속한다. 초기의 모든 결혼식들은 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졌으며, 여인들은 아이들을 갖고 싶을 때, 튼튼한

참나무를 다정하게 껴안고 숲 속에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많은 식물들과 나무들은, 그것들의 실제적인 또는 상상에 의한 치유 효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야만인들은 모든 화학 작용들이 초자연적인 힘의 직접적인 활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믿었다.

85:2.4 (945.7) 나무의 영들에 관한 관념은 부족들과 종족들마다 크게 차이가 났다. 어떤 나무들 속에는 인정 많은 혼들이 들어있고, 또 어떤 나무들 속에는 현혹하는 그리고 사악한 혼들이 숨어있다고 믿었다. 핀란드 사람들은 대부분의 나무들이 친절한 혼들에 의해 지배된다고 믿었다. 스위스 사람들은 나무들 속에 교활한 혼들이 들어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그것들을 의심하였다. 인도와 동부 러시아의 주민들은 나무의 혼들이 무자비하다고 생각하였다. 파타고니아 주민들은 초기의 썸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나무들을 경배하고 있다. 히브리인들은, 나무 경배를 멈춘 후 오랜 세월이 지나자, 작은 숲들 속에서 자기들의 다양한 신(神)들을 숭배하였다. 중국을 제외한 세계의 전 지역에서 생명나무에 대한 예배종파가 한 때 존재하였다.

85:2.5 (946.1) 점을 치는 나무 막대기로 땅 밑에 있는 물 또는 귀중한 금속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은 나무를 숭배하는 고대 예배종파들의 잔재이다. 5월 축제의 기둥,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나무, 그리고 나무를 두드리는 미신적인 실천 관행들은, 나무에 대한 경배와, 훗날의 나무 예배종파들에게 있었던 어떤 고대의 관습들이 영속하는 것이다.

85:2.6 (946.2) 이러한 초기 형태의 자연 숭배들 대부분은 후대의 진화하는 경배 기법과 혼합되었지만, 가장 초기의 보조-마음으로 활성화된 유형의 경배는, 새롭게 일깨워지는 인류의 종교적 본성이 영적인 영향들의 충동에 충분히 반응하게 되기 훨씬 전에 이루어졌다.

제 3 장. 동물들에 대한 경배

85:3.1 (946.3) 원시인은 고등(高等) 동물들에 대해 특별하고도 다정한 느낌을 가졌다. 그의 조상들은 그들과 함께 살았고 심지어는 그들과 교미 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남부 아시아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람들의 혼이 동물 형태가 되어 지구로 돌아온다고 믿었다. 이러한 신념은 훨씬 전에 있었던 동물 경배 실천 관행이 남아 있는 것이다.

85:3.2 (946.4) 초기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능력과 솜씨를 위해 동물들을 존경하였다. 그들은, 특정한 창조체들이 예민하게 냄새를 맡고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영의 안내를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동물들은 모두 한 때 어떤 종족에 의해서 경배를 받았었다. 그러한 경배 대상물들 중에는 켄타우루스처럼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인 존재로 생각되는 창조체들이 있었다.

85:3.3 (946.5) 히브리인들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르기까지 뱀을 경배하였고, 힌두 지역의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집에 있는 뱀들을 잘 대우하고 있다. 중국 사람들이 용을 경배하는 것은 뱀 숭배의 잔재이다. 뱀의 지혜는 그리스 마법의 상징이었으며 현대 의사들에 의해 아직도 하나의 표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뱀을 길들이는 기술은, 일상적으로 뱀에게 물려서 면역성을 갖게 되어 사실상 독액에 온통 중독되고 이 독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뱀을 사랑하는 예배종파의 여자 무당들의 시대로부터 전해 내려 왔다.

85:3.4 (946.6) 곤충들과 다른 동물들을 경배하는 것은 나중에 황금률—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 바라는 대로 남(모든

형태의 생명체)에게 행하기—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조장되었다. 옛 사람들은 한 때 모든 바람들이 새들의
날개에 의해 형성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날개를 가진 모든
창조체들을 두려워하고 경배하였다. 초기 시대의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일식과 월식 현상들이 해와 달의
일부분을 먹어버리는 늑대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하였다. 힌두 지역의 사람들은 말의 머리를 가진
비쉬누를 종종 보여준다. 동물 형상이, 잊혀진 하느님 또는
사라진 예배종파를 대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진화하는
종교의 초기 시대에는 양이 전형적인 희생 제물 용도의
동물이 되었으며 비둘기는 평화와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85:3.5 (946.7) 종교에서의 상징주의는 그 상징이 기원적 경배
관념을 바꾸어 놓느냐 아니냐에 따라 좋고 나쁨이 판가름
날 수 있다. 그리고 상징주의는 물질적인 사물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실재적으로 경배되는 노골적인
우상경배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제 4 장. 자연요소에 대한 경배

85:4.1 (946.8) 인류는 땅, 공기, 물, 그리고 불을 경배하였다.
원시적인 종족들은 샘물을 존경하였고 강들을

경배하였다. 지금도 몽고에서는 강을 숭배하는 예배종파가 영향력을 미치면서 번창하고 있다. 바빌로니아에서는 세례를 주는 것이 종교적인 예식이 되었고, 그리스인들은 해마다 종교 예식의 일환으로 목욕을 하는 실천 관행이 있었다. 고대의 사람들이, 거품이 이는 우물, 용솟음치는 분수, 흐르는 강들, 그리고 사납게 흐르는 급류들 속에 영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다. 움직이는 물은, 영의 활동력과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 이러한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 강의 하느님을 거스른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85:4.2 (947.1) 많은 사물들과 사건들이 여러 시대들마다 서로 다른 민족들에게 종교적인 자극제로 기능하였다. 무지개는 인도의 고지대에 사는 부족들에 의해 아직도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도와 아프리카에서는 무지개가 거대한 천상의 뱀으로 여겨지고 있다; 히브리인들과 그리스도교인 들은 “약속의 활”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세상의 한 지역에서 유익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해로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동풍(東風)을 하느님으로 여기지만; 인도에서는 그것이 먼지와 가뭄을 가져오기 때문에 악마로 여겨진다. 고대의 베도원 족속들은 자연의 영이 모래 소용돌이를 일으킨다고 믿었으며, 심지어는 모세 시대에도 자연의 영들에 대한 믿음은 불. 물. 그리고 공기의 천사로 히브리 신학 속에 영속성으로 보존되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하였다.

85:4.3 (947.2) 구름과 비 그리고 우박은, 모두 수많은 원시적 부족들에 의해서, 그리고 자연을 경배하는 초기의 많은 예배종파들에 의해서, 두려움과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폭풍우는 초기 사람에게 겁을 주었다. 그들은 이러한 소란스러운 자연 현상에 의해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천둥을 화가 난 신(神)의 음성으로 간주하였다. 불에 대한 경배와 번개에 대한 두려움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초기의 많은 집단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85:4.4 (947.3) 불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원시적 필사자들의 마음속에서 마술과 혼합되어 있었다. 마술을 신봉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술적인 방법들을 실천한 결과로 우연히 나타나는 긍정적인 현상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되는 반면, 철저하게 실패한 수많은 부정적인 결과들은 무관심하게 잊어버린다. 불에 대한 존경은 페르시아에서 최고점에 달하였는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어떤 부족들은 불을 신(神) 그 자체로 경배하였다; 또 어떤 부족들은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神)들의 정화시키고 소멸시키는 영에 대한, 불타오르는 상징으로 그것을 존경하였다. 베스타 여신을 섬기는 처녀들에게는 거룩한 불들이 꺼지지 않도록 망을 보는 임무가 주어졌으며, 20세기에도 많은 종교적 예배봉사들의 예식의 일부분으로 촛불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제 5 장. 하늘 몸체에 대한 경배

85:5.1 (947.4) 바위, 언덕, 나무, 그리고 동물에 대한 경배는, 자연의 힘을 두려움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쳐서, 태양과 달 그리고 별의 신격화에 이르기까지 자연적으로 발달하였다.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별들은 육신의 삶으로부터 떠난 위대한 사람의 영화롭게 된 혼으로 간주되었다. 갈대아인 별 예배종파자들은 자신들이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의 자녀라고 생각했다.

85:5.2 (947.5)

달에 대한 경배가 해에 대한 경배보다 먼저 있었다. 달에 대한 숭배는 사냥 시대에 최고점에 달한 반면, 해에 대한 경배는 그 후에 이루어진 농경 시대의 주요 종교적 예식이 되었다. 태양 경배는 처음에는 인도에서 광범위하게 뿌리를 내렸으며, 그곳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었다. 페르시아에서는 태양 숭배가 나중에 미드라예배종파로 일어나도록 하였다.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태양은 자기들의 왕들의 조상으로 여겨졌다. 갈대아인들은 “우주의 일곱 순환계들” 중심에 태양을 위치시켰다. 후대의 문명인들은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태양을 공경하였다.

85:5.3 (947.6)

태양의 하느님은 처녀-탄생 아들이 태어나도록 하는 신비로운 아버지이며 그리고 이 운명의 아들은 은혜 받은 자기민족의 구원자로서 언젠가는 멀지 않아 증여될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간난 아기는 어떤 거룩한 강물 위로 떠 내려와서, 기이한 인연으로 구출되어 질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인물이 되어서 자기 민족들을 구출하도록 자라날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다.

제 6 장. 사람에 대한 경배

85:6.1 (948.1) 이 세상과 저 하늘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경배하던 사람은, 그러한 찬미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단순한 마음을 소유한 야만인들은 짐승과 사람 그리고 하느님들 사이를 명쾌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85:6.2 (948.2) 초기 시대의 사람은 모든 비범한 사람들을 초자연적인 개인으로 간주하였으며, 그러한 존재들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을 경외심으로 존경하였고; 어느 정도는 문자 그대로 그들을 경배하였다. 쌍둥이를 낳는 것은 매우 운이 좋은 것으로 또는 매우 운이 나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미치광이들과 간질 병자들 그리고 정신박약자들이 정상적인 동료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그들은 그러한 비정상적인 존재들 속에 하느님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 사제들과 왕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경배의 대상이었다; 나이 많은 거룩한 사람들은 신(神)들에 의해 영감을 받은 것으로 여겨졌다.

85:6.3 (948.3) 부족장들이 죽으면 신(神)화 되었다. 나중에는, 세상을 떠난 특출한 혼은 성자가 되었다. 도움 받지 않는

진화는, 영화롭게 되고, 드높여진, 죽은 인간에서의 진화된 영보다 더 높은 하느님을 결코 만들어 낸 적이 없다. 초기의 진화 단계에서는 종교가 자기 자신의 하느님들을 만든다. 계시의 과정에서는 하느님들이 종교를 형성한다. 진화 종교는 필사 사람의 형상과 모습으로 그 하느님을 창조한다; 계시 종교는 필사 사람을 하느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진화시키고 변환시키기를 추구한다.

85:6.4 (948.4) 인간으로부터 기원된다고 가정하는 귀신 하느님들은, 자연 하느님들과는 구별되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자연을 경배하는 것은 하느님들의 위치까지 높여진 만신(萬神)적 특성의 사조(思潮)를 진화시켰기 때문이다. 자연 숭배 예배종파들은 나중에 나타난 귀신 숭배 예배종파들을 따라서 계속 발전하였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다. 많은 종교 체계들은 신(神)에 대한 이원적(二元的) 개념, 자연 하느님들과 귀신 하느님들의 개념을 갖고 있다; 번개의 주인이면서 귀신의 영웅이기도 한 토르에 의해 설명되듯이, 혼란스럽게 얽힌 개념들이 들어 있는 신학들도 있다.

85:6.5 (948.5) 그러나 사람에 의한 사람 경배는, 현세의 통치자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한 숭배를 명령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근거로 자기들이 신(神)으로부터 내려온 존재라고 주장하였을 때 최고점에 달하였다.

제 7 장. 경배와 지혜에 대한 보조자

85:7.1 (948.6) 자연 경배는 원시적인 남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며, 또 그것이 사실이었지만; 이 시기에 있어서 바로 그 원시적인 마음속에는 여섯 번째 보조 영이 항상 작용하고 있었는데, 영은 인간의 진화 위상을 안내하는 하나의 세력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미 증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영은, 경배에 대한 갈망의 첫 현시활동이 아무리 원시적이라 할지라도, 인간 종족들에게 그것을 계속 자극시켰다. 경배의 영은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인간적 충동을 명확하게 탄생시켰으며, 그것에 대한 초기의 실천은 자연을 대상으로 삼는 일에 집중되었다.

85:7.2 (948.7) 모든 진화적인 발전에 있어서 영향력을 안내하고 통제 한 것은 사고(思考)가 아니라 느낌이었다는 것을 너희는 꼭 기억해야만 한다. 원시적인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회피와 명예를 바침과 경배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다.

85:7.3 (948.8) 경배에 대한 욕망은 지혜—묵상으로의 그리고 체험으로의 사고—to에 의해서 충고를 받고 지도를 받으며 그 후에는 실제적인 종교 현상으로 발전된다. 지혜의 영인 일곱 번째 보조 영이 효과적인 봉사사명을 성취하면, 사람은 경배 과정 속에서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자연적인 대상물로부터 멀어지는 동시에 자연의 하느님께로 그리고 모든 자연 세계의 영원한 창조자께로 돌아서기 시작한다.

85:7.4 (949.1) [네바돈의 찬란한 저녁별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86 편 종교의 초기 진화

86:0.1 (950.1) 전에 존재하였던 원시적인 예배 충동으로부터의 종교 진화는 계시에 의존된 것이 아니다. 우주적으로 증여된 영의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마음-보조자의 지배적인 영향 하에 있는 인간 마음의 정상적인 기능은 그러한 발전을 보장하기에 전적으로 충분하다.

86:0.2 (950.2) 종교가 생기기 전에 사람이 처음으로 가졌던 자연의 기세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이 개인성구현되고,

영성화 되고, 결국에는 인간 의식(意識) 속에서 신(神)화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종교적 성향을 갖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적 유형의 종교는 진화하는 동물 마음들의 심리적 타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결과인데, 그러한 마음들은 이미 한 때 초자연에 대한 개념을 간직한 이후에 일어난다.

제 1 장. 운수: 행운과 불운

86:1.1 (950.3) 자연적인 경배 충동을 제외시킨다면, 초기의 진화적 종교는 운수—소위 행운, 평범한 사건들—에 대한 인간 체험에 그 기원의 뿌리를 두고 있다. 원시인은 음식을 찾아다녔다. 그러한 탐색의 결과는 항상 변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람들이 행운과 불운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특별한 체험들을 하도록 만들었다. 생존과 죽음의 불확실하고 초조한 경계선 위에서 끊임없이 살아야만 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삶 속에서 불운은 하나의 중대한 요인이었다.

86:1.2 (950.4) 야만인들의 제한된 지적 시야가 너무나도 운수에 관심을 집중하였기 때문에, 행운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의 일정한 요소가 되었다. 원시적인 유란시아인 들은

생활수준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투쟁하였다; 운수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위험한 삶을 살았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불행에 대한 변치 않는 두려움은, 모든 쾌락을 효과적으로 가릴 수 있는 하나의 절망적인 구름을 이 야만인들 머리 위에 드리웠으며; 그들은 불운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것을 하는 데 대한 변치 않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미신에 사로잡힌 야만인들은 행운이 달아나는 것을 항상 염려하였다; 그러한 행운 뒤에는 재난이 따라온다고 생각하였다.

86:1.3 (950.5) 불운에 대한 항상 존재하는 두려움이 계속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어떤 사람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행운—아무 것도 하지 않고 어떤 것을 얻음—을 만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가 불운—무엇인가 했는데 아무 것도 얻지 못함—을 자초하겠는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행운은 쉽게 잊지만—당연하게 여긴다—불운은 애써 기억한다.

86:1.4 (950.6) 초기의 사람은 불확실성과 운수—불운—에 대한 계속적인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삶은 운수라는 일종의 흥미진진한 경기와 같았다; 생존은 도박과 같았다.

부분적으로 문명화된 사람들이 아직도 운수를 믿고 도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원시인은 두 개의 잠재적인 관심들 즉: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욕망과 무엇인가를 하고서도 아무 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염려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였다. 그리고 생존에 있어서의 이러한 도박은 야만적인 마음을 소유한 초기 인간에게 주요 관심사였고 최극의 매력이었다.

86:1.5 (951.1) 목축을 하는 후대의 사람들도 운수와 행운에 대해 똑같은 관점을 가진 반면, 농업에 종사하는 더 후대의 사람들은 사람이 거의 또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것들에 의해서 농작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다. 농부는 자기 자신이 가뭄, 홍수, 우박, 폭풍우, 해충, 식물의 질병뿐만 아니라 더위와 추위 등에 의한 피해자임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자연적인 영향들이 개별존재의 번영을 좌우하자, 그들은 그것을 좋은 운 또는 나쁜 운으로 여기게 되었다.

86:1.6 (951.2) 운수와 행운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고대의 모든 민족들의 생각 속에 강력하게 침투하였다. 심지어는

후대에 쓰인 솔로몬의 지혜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돌이켜 보니,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힘이 세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며,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재주가 있다고 해서 잘되는 것도 아니고; 숙명과 기회는 누구나 닥치는 것이다. 사람은 그의 숙명을 알지 못하기에; 물고기들이 악한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새들이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제 2 장. 운수의 개인화구현

^{86:2.1 (951.3)} 불안은 야만적인 마음의 자연적인 상태이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과도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때는, 단순하게 그들의 먼 조상들의 자연적인 생활 환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불안이 실재적으로 고통스러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활동을 억제하며 반드시 진화적인 변화와 생물학적인 적응을 시작하게 한다. 고통과 투쟁은 진보적인 진화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86:2.2 (951.4)} 삶을 위한 투쟁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떤 부족들은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비탄에

잠기기까지 한다. 원시인이 계속 질문하는 것은 “누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자신의 불행을 해소시킬 물질적 근원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해결책에 의존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해서 종교는, 신비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발생되었다. 그리하여 자연에 대한 두려움은, 처음에는 우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비함 때문에, 실존을 위한 투쟁에서 한 요소가 되었다.

86:2.3 (951.5) 원시적인 마음은 논리적이기는 하였지만 지능적인 관계적-연합에 대한 관념은 거의 없었다; 야만적인 마음은 무식하였고 전적으로 순박하였다. 만약에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 다음에 일어나면, 야만인들은 그것들을 원인과 결과로 간주하였다. 문명인들이 미신으로 간주하는 것들이 야만인들의 세계에서는 그저 단순한 무지에 불과하였다. 인류는, 동기와 결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반드시 성립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배우는 데 느리게 왔다. 인간 존재들은, 실존에서의 반응들이, 행동과 그들의 결과물 사이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제야 겨우 실현하기 시작하였다.

야만인은 감지할 수 없는 추상적인 모든 것들을
개인성구현 시키려고 분투하며, 그리하여 자연과 운수 둘
모두 귀신으로 개인성구현되었고 나중에는 하느님들로
여겨졌다.

86:2.4 (951.6) 사람은 자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최선이라
여기는 것, 당장 또는 먼 앞날의 이익이 되는 것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자아-이익은 대개 논리를 흐리게 만든다.
야만인과 문명화된 사람의 마음에서의 차이는
자연본성이라기보다는 내용, 본질특성이라기보다는
정도의 차이이다.

86:2.5 (951.7)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계속하여
초자연적인 원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모든 형태의
지적인 힘든 일을 회피하는 게으르고 편리한 방법이나
다름없다. 행운이라는 말은 인간이 실존한 모든 시대들에
있어서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낸
단어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통찰할 수 없는 또는 통찰하기
싫어하는 현상들을 가리킨다. 운수라는 말은 사람이 너무
무지하거나 너무 나태하여 원인을 측정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상상력이 부족할 때,

인종들에게 독창력과 모험심이 부족할 때에만 자연적인 발생사건들을 우연한 현상 또는 불운으로 간주한다. 생명의 현상에 대한 탐구로 말미암아, 운수와 행운 그리고 소위 우연한 현상들에 대한 사람의 믿음은 조만간에 무너질 것이며, 그 대신에 모든 결과들이 있기 전에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우주로 대체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존에 대한 두려움은 삶에 대한 기쁨으로 바뀐다.

86:2.6 (952.1) 야만인들은 모든 자연이 살아있다고, 어떤 존재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문명화된 사람은 아직도, 자기를 방해하고 자기에게 부딪히는 생명이 없는 물체들을 발로 차면서 저주한다. 원시인은 어떤 것도 우연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모든 것들이 계획되었다고 항상 생각하였다. 원시인에게 있어서 운명의 권역, 행운의 기능, 영의 세계는 원시적인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조직되지 않은 것이었고 우연한 것이었다. 행운은 영적인 세계의 변덕스럽고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간주되었다; 나중에는 하느님들의 기분으로 간주되었다.

86:2.7 (952.2) 그러나 모든 종교들이 정령(精靈) 숭배로부터 발전된 것은 아니었다. 초자연적인 존재들에 대한 다른 개념들이 정령 숭배와 동시에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믿음들 역시 경배의 형태로 바뀌었다. 자연주의는 종교가 아니다—종교의 부산물이다.

제 3 장. 죽음—설명할 수 없는 것

86:3.1 (952.3) 죽음은 진화하는 사람들에게 최극의 충격이었으며, 우연과 신비가 가장 복잡하게 얽힌 것이었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 대신에 죽음에 대한 충격이 두려움을 불어넣었고 그리하여 효과적으로 종교를 조성시켰다. 야만적인 민족들 사이에서 죽음은 대개 폭력에 의해 발생되었기 때문에, 비폭력에 의한 죽음은 점점 더 신비한 것으로 여겨졌다. 자연적인 그리고 예상되는 삶의 종말로서의 죽음은, 원시 민족들의 의식에게는 명쾌하지 않았으며, 그 필연성을 깨닫기까지는 기나 긴 세월이 요구되어왔다.

86:3.2 (952.4) 초기의 사람은 생명을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인 반면, 죽음은 어떤 종류의 내려오는 방문으로 여기었다. 모든 종족들은 죽음에 대한 초기 자세의 희미한 전통들,

죽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들의 전설을 갖고 있다. 인간 마음속에는 인간의 삶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이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권역, 흐릿하고 조직화되지 않은 영 세계에 대한 불투명한 개념이 이미 존재하였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적힌 긴 목록에 죽음이 추가되었다.

86:3.3 (952.5) 인간의 모든 질병들과 자연사(自然死)는, 처음에는 영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믿어졌다.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어떤 문명화된 종족들은 질병이 “악마”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종교적인 예식에 의존한다. 후대의 그리고 보다 복잡한 신학 체계들도 여전히 죽음을 영적 세계의 작용의 탓으로 돌렸으며,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원죄(原罪)와 사람의 타락이라는 교리가 생겨나게 되었다.

86:3.4 (952.6) 야만인을 자신이 일생의 신비스럽고 변화무쌍한 근원이라고 막연하게 상상하던 초자연적 세계로부터 도움을 구하도록 강제로 몰아간 것은, 질병과 죽음의 방문 앞에서의 인간의 허약함에 대한 인지와 더불어, 자연의 막강한 기세 앞에서의 무능력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제 4 장. 죽음-생존 개념

86:4.1 (952.7) 필사자 개인성의 초물질적 상태에 대한 개념은 무의식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것들과 귀신에 대한 꿈이 순전히 우연하게 합쳐짐으로써 생겨났다. 죽은 부족장에 대한 꿈을 여러 부족민들이 동시에 꾸게 되는 것은, 옛 부족장이 정말로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땀을 흘리고 떨면서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한 꿈으로부터 깨어난 야만인들에게 그것은 모두 매우 실제적인 것이었다.

86:4.2 (953.1) 미래의 실존에 대한 믿음의 환상적인 기원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들에 대한 표현으로 항상 추측하려는 경향을 설명해 준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꿈-귀신-미래-삶 개념은 이윽고 자아-보존에 대한 생물학적 본능과 결합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기 시작하였다.

86:4.3 (953.2) 또한 초기의 사람은 자신의 호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특별히 추운 지방에서 더 그러하였고, 그곳에서는 숨을 내쉴 때 입김이 보였기 때문이다. 생명의

호흡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는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그들은 호흡이 육체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잠을 자는 동안에 모든 종류의 괴상한 것들을 꿈꾸었기 때문에 인간 존재에 관한 비물질적인 무엇이 있다고 확신하였다. 인간의 혼(魂), 귀신에 대한 가장 원시적인 관념은, 호흡-꿈의 관념-체계로부터 도출되었다.

86:4.4 (953.3) 야만인들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이중적인 존재—육체와 호흡—라고 생각하였다. 육체를 제외한 호흡이 영(靈), 귀신과 같았다.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매우 명확한 개념을 가진 반면, 귀신들 또는 영들은 초인간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체현에서 벗어나게 된 영들이 실존한다는 이러한 믿음이, 보기 드문 것, 비범한 것, 희귀한 것,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발생사건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86:4.5 (953.4) 죽음 이후의 생존에 대한 원시 교리는 불멸에 대한 믿음일 필요가 없었다. 20개 이상을 셀 수 없는 존재들은 무한과 영원을 도저히 착상할 수 없다; 그들은 오히려 육신화가 거듭되는 것을 생각했다.

86:4.6 (953.5) 오렌지색 인종은 특별히 윤회와 환생을 믿는 경향이 많았다. 환생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유전적인 현상과 자손들의 특색이 조상을 닮는 현상의 목격으로부터 기원되었다. 조부모(祖父母) 그리고 다른 조상들을 따라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관습은 환생에 대한 믿음에서 기인되었다. 후대의 어떤 종족들은 사람이 세 번 내지 일곱 번 죽는다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과(맨션세계들에 관한 아담의 가르침으로부터 잔재된), 계시된 종교의 많은 다른 유물들은, 20세기 미개인들의 다른 면에서의 모순된 교리들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86:4.7 (953.6) 초기의 사람은 지옥이나 장래의 형벌에 대한 관념들을 갖고 있지 않았다. 야만인들은 저 세상의 삶을, 모든 불운을 제외한 이 세상의 삶과 똑같이 생각하였다. 나중에는 선한 귀신들과 나쁜 귀신들에 대한 운명—천국과 지옥—이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가 떠나간 이 세상의 삶과 똑같은 상태의 저 세상의 삶을 산다고 많은 원시 종족들이 믿게 된 이후로, 나이가 들고 쇠약해지는 것에 대한 관념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 늙은 사람들은 너무 쇠약해지기 전에 죽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였다.

86:4.8 (953.7) 거의 모든 집단들은 귀신이 된 혼의 운명에 대해서로 다른 관념을 갖고 있었다. 그리스인들은, 약한 사람의 혼은 반드시 허약하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허약한 혼들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장소로 하데스 지옥을 고안해 내었다; 튼튼하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은 그 귀신도 작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초기의 안드-사람들은 자기들의 귀신이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였다. 중국인들과 이집트인들은 혼과 육체가 함께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이집트인들 사이에서는 이것 때문에 주의 깊게 무덤을 건축하게 되었고 시신을 보존하기 위하여 애쓰게 되었다. 심지어는 현대인들도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히브리인들은 개별존재의 복제된 유령이 저승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였다; 살았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혼의 진화에 대한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제 5 장. 귀신-혼의 개념

86:5.1 (953.8) 사람의 비물질적 부분은, 귀신, 영, 망령(亡靈), 유령(幽靈), 요귀, 그리고 최근에는 혼(魂)이라는 이름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왔다. 혼은 초기 사람의 꿈 망령이었다; 접촉에 대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필사자 자신과 똑같은 것이었다. 꿈 망령을 끈다는 믿음은, 생물과 무생물 모두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혼을 갖고 있다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유도해 내었다. 이러한 개념은 오랫동안 자연-영 믿음이 영속하기를 바라는 경향이였다; 에스키모인 들은 아직도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86:5.2 (954.1) 귀신이 된 혼을 볼 수 있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지만 만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 종족의 꿈꾸는 생활이 점차적으로 더욱 개발되었고 이러한 진화하는 영의 세계에 대한 활동들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마침내는 죽음을 "귀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동물과 거의 다름없는 상태를 제외하고, 원시적인 모든 부족들은, 혼에 대한 어떤 개념을 발전시켰다. 문명이 진보되면서, 혼에 대한 이러한 미신적인 개념이 무너지고 있으며, 사람은 하느님을 아는 필사자 마음과 그 속에 내주하는 신성한 영, 생각 조절자의 공동 창작에 따라 혼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관념을 위하여 계시와 개인적인 종교적 체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86:5.3 (954.2) 초기의 사람들은 대개 내주 하는 영에 대한 개념과 진화적 본성의 혼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야만인들은, 귀신이 된 혼이 원래 몸속에 타고나는 것인지 아니면 육체를 감싸는 외적 대리자인지에 대해 매우 혼돈을 일으켰다. 혼란의 현존에서 이성적(理性的)인 사고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혼과 귀신 그리고 영에 대한 미개한 관점이 전체적으로 모순되게 되었다.

86:5.4 (954.3) 꽃과 그 향기의 관계처럼 혼이 육체와 관계된다고 생각하였다. 옛 사람들은 혼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육체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즉:

86:5.5 (954.4) 1. 평범하게 그리고 과도기적으로 기절한 경우.

86:5.6 (954.5) 2. 잠을 자면서, 자연적으로 꿈을 꾸는 경우.

86:5.7 (954.6) 3. 질병 또는 우연한 현상과 연관되어 혼수상태 또는 무의식 상태에 빠진 경우.

86:5.8 (954.7) 4. 죽어서 영원히 떠난 경우.

86:5.9 (954.8) 야만인들은 재채기하는 것을, 혼이 육체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깨어서 지킴으로써 혼이 도망치려는 것을 육체가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나중에는, 재채기를 할 때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신다!”는 말과 같은, 어떤 종교적인 표현이 덧붙여졌다.

86:5.10 (954.9) 진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잠을 자는 것은 귀신이 된 혼이 육체로부터 떠날 수 있음을 증거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잠자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거나 소리침으로써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믿었다. 혼은 다른 형태의 무의식 속에서 더 멀리 떠나는 것으로, 아마도—죽음이 임박하였을 때.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꿈은, 잠을 자는 동안 혼이 일시적으로 육체를 떠나서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미개인들은, 자기가 꿈이, 깨어서 체험하는 것의 일부분인 실제적인 것이라고 믿는다. 옛 사람들은 잠자는 사람을 급하게 깨우지 않는 실천 관행을 제정하였는데, 혼이 몸속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86:5.11 (954.10) 시대가 지나가는 동안 내내, 사람들은 밤에 나타나는 유령을 두려워하였으며, 히브리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러한 관념을 반대하는 모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느님께서 꿈속에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었다. 그리고 모세가 옳았던 것은, 영적인 세계의 개인성들이 물질적인 존재들과 교통할 방법을 모색할 때 일상적인 꿈들이 그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86:5.12 (954.11) 옛 사람들은 혼이 동물에게로 또는 심지어 무생물에게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생각은, 동물과 정체화구현 하는, 사람이 늑대가 된다는 관념에서 정점에 달하였다. 어떤 사람이 낮에는 법을 지키는 시민이 될 수 있지만, 잠이 들게 되면 그 혼이 늑대 또는 다른 동물 속으로 들어가서 야밤의 약탈 행위를 하기 위해 어슬렁거리며 다닐 수 있다고 믿었다.

86:5.13 (955.1) 원시인들은 혼이 호흡과 연관된다고 생각하였으며, 그 본질특성이 호흡에 의해서 전해지거나 양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용맹스러운 우두머리가 새로 태어나는 아이 위에 숨을 크게 내쉬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자 하였다. 초기의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에서는, 성령 증여 기념식을 하면서 후보자들에게 입김을 뿜었다. 시편 기자(記者)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들이 만들어졌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그의 입김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기록하였다. 죽어가는 아버지의 마지막 숨을 맡아들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행위가 오랫동안 관습으로 지켜졌다.

86:5.14 (955.2) 나중에는 그림자를 두려워하였고 호흡과 마찬가지로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물에 비친 모습도 때로는 이중적인 자아에 대한 증거로 간주되었으며, 미신적인 두려움으로 거울을 취급하였다.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많은 문명인들은 죽음의 사건 안에서는 거울을 벽 쪽으로 돌려놓는다. 어떤 미개한 부족들은 아직도, 사진이나 초상화나 모형 또는 형상들이 그 혼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제거시킨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금지시킨다.

86:5.15 (955.3) 혼은 일반적으로 호흡으로 정체성이 확인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머리, 머리카락, 심장, 간, 피, 지방질 속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다. “아벨의 피가 땅 속에서 부르짖고 있다.”는 말은 피 속에 귀신이 현존한다는 한 때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셈의 자손들은 혼이 몸의 지방질 속에 거주한다고 가르쳤으며,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동물의 기름을 먹는 것이 금기로 지켜졌다. 가죽을 벗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머리를 잘라 오는 것이 적의 혼을 사로잡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눈이 혼의 창문과 같다고 간주되어 왔다.

86:5.16 (955.4) 혼이 세 개 내지 네 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혼을 하나 잃는 것은 불안감을, 두 개를 잃는 것은 질병을, 세 개를 잃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하나의 혼은 호흡 속에, 또 하나는 머릿속에, 또 하나는 머리카락 속에, 또 하나는 심장 속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환자들은 그들의 방황하는 혼들을 다시 찾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야외를 방황하도록 충고를 받았다. 가장 훌륭한 주술사(呪術師)는 질병에 걸린 사람의 아픈 혼을 새로운 것, “새로운 탄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86:5.17 (955.5) 바도난의 자녀들은 두 개의 혼, 호흡과 그림자에 대한 믿음을 발전시켰다. 초기의 낯-사람 부족들은 사람이

두 개의 개인, 혼과 육체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인간 실존에 대한 이러한 철학은 나중에 그리스적 관점에 반영되었다. 그리스인들 자신은 세 개의 혼들을 믿었는데; 성장하는 혼은 배속에 있고, 동물적인 혼은 심장 속에 있으며, 지적인 혼은 머릿속에 있다고 믿었다. 에스키모인 들은 사람이 육체와 혼과 이름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다.

제 6 장. 귀신-영의 환경

86:6.1 (955.6) 사람은 자연 환경을 물려받았고, 사회 환경을 획득하였으며, 귀신 환경을 상상하였다. 국가는 자연 환경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고, 가정은 사회 환경에 대한 반응이며, 교회는 환상적인 귀신 환경에 대한 반응이다.

86:6.2 (955.7) 인류 역사상 매우 초기에는, 귀신과 영에 대한 상상적인 세계의 실체들이 보편적으로 믿어지게 되었으며, 새롭게 상상되어진 이러한 영의 세계는 원시적 공동체 속에서 하나의 힘을 갖게 되었다. 모든 인류의 정신적 도덕적 삶은 인간의 사고(思考)와 행동에 있어서의 이러한 새로운 요소의 출현에 의해 항상 수정되었다.

86:6.3 (955.8) 필사자의 두려움이 그 뒤에 따라오는 원시 민족들의 모든 미신과 종교를, 환상과 무지에 대한 이러한

주요 전제(前提) 속으로 채워 넣었다. 이것은 계시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사람의 유일한 종교였으며, 오늘날에도 세계의 많은 종족들이 이러한 미숙한 진화적 종교만을 신봉하고 있다.

86:6.4 (955.9) 진화가 진행되면서, 행운은 선한 영들과 연결되고 불운은 악한 영들과 연관되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강제적 적응의 불안감이 불운, 영적인 귀신들의 불쾌감으로 간주되었다. 원시인은 자신의 타고난 경배 충동과 운수에 대한 오해로부터 종교를 서서히 진화시켰다. 문명화된 사람은 이러한 우연한 발생사건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험이라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 과학은 허구적인 영들과 변덕스러운 하느님들을 대신에 수학적인 계산으로 보험 체제를 삼는다.

86:6.5 (956.1) 지나가는 각 세대들은 자기 조상들의 어리석은 미신을 비웃는데, 한편으로는 깨우친 후손들의 일부에게서 계속 비웃음이 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그러한 생각과 경배에서의 잘못을 즐기면서 나아가고 있다.

86:6.6 (956.2) 그러나 원시인의 마음은 마침내 자신의 모든 선천적인 생물학적 충동들을 초월하는 사상으로 지배되었다; 사람은 마침내 물질적 충동에 대한 반응보다 나은 어떤 것을 기초로 하는 삶의 기술을 진화시키게 되었다. 원시적인 철학적 생활 방침의 시초들이 창발하고 있었다. 삶에 대한 초자연적 기준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만일 영적인 귀신이 화가 나면 불운을 가져오고 유쾌하면 행운을 가져다준다면, 인간 행위는 그에 따라 규제되어야만 하였기 때문이다. 마침내 옳고 그름됨에 대한 개념이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계시 시대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이루어졌다.

86:6.7 (956.3) 이러한 개념들의 창발과 함께, 항상 화를 내는 영들을 달래기 위한 오랫동안의 낭비적인 투쟁, 진화적인 종교적 두려움에 노예처럼 속박된 상태가 시작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무덤들과 신전(神殿)들과 희생 제물들 그리고 사제 제도들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낭비하였다. 그것은 혹독하고 무시무시한 대가였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사람이 상대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자연적인 의식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의 윤리가 탄생되었기 때문이다!

제 7 장. 원시 종교의 기능

86:7.1 (956.4) 미개인들은 대비책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불운에 대처하는 마법에 의한 대비책의 방법을 위하여, 두려움, 미신, 공포, 사제에 대한 선물의 힘든 사례금을 기꺼이 지불하였다. 원시적인 종교는 단순히 사냥터가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었다; 문명화된 사람은 산업의 재해와 현대적인 형식의 삶 속에서의 급박한 사정에 대비하는 물질적 대가를 지불한다.

86:7.2 (956.5) 현대 사회는 보험 업무를 사제들과 종교의 영역으로부터 제거하여, 그것을 경제의 권역 속에 맡기고 있다. 종교는 점점 더 무덤 저편의 삶에 대한 대비책에 관여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적어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운을 통제하기 위해 낭비적인 대가를 더 이상 지불하지 않는다. 종교는, 불운에 대비하는 보험 계획으로 기능하던 이전의 개념에 비하여 보다 높은 철학적 차원으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86:7.3 (956.6) 그러나 종교에 대한 이러한 고대의 관념들은, 사람이 숙명론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절망적으로 비관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해 주었다; 그들은 적어도 운명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귀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긴 종교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위성을 규제해야만 한다는 것, 인간의 운명을 통제하는 초물질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시켰다.

86:7.4 (956.7) 현대의 문명화된 종족들은 실존에서의 행운과 일상적인 불평등에 대한 설명으로서 여기던 귀신에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막 창발 하여 솟아오르고 있다. 인류는 불운을 귀신-영 때문으로 해석하는 속박에서 해방을 성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일생의 변천들이 영에 원인이 있다는 잘못된 교리를 포기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모든 인간의 불평등이 정치적 부적응, 사회적 불공정 그리고 산업에서의 경쟁의 탓으로 여기라고 그들에게 강요하는, 거의 동등하게 그릇된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놀라운 정도의 자발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 제정, 증가하는 박애주의 그리고 더욱 많은 산업적 재조직은, 비록 그것들 자체가 선하고 그리고 자체 안에 선한 것이 있다 해도, 탄생의 사실들과 삶의 발생 사고들을

치료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직 사실들에 대한 이해와 자연의 법칙 내에서의 지혜로운 조종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도록 해 줄 것이다. 과학적 행동으로 이끄는 과학적 지식만이, 이른바 우연히 일어나는 흥하고 불길한 것들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이다.

86:7.5 (957.1) 산업과 전쟁과 노예제도 그리고 시민 정부는, 천연적인 환경 속에서 사람의 사회적 진화에 반응하여 발생되었다; 그와 유사하게 종교도 허구적인 귀신 세계의 가공의 환경에 반응하여 발생되었다. 종교는 자아-유지에 대한 진화적 발전이었으며, 근본적으로 잘못된 개념 속에서 그리고 철저한 비(非)논리성 속에서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향을 미쳐 왔다.

86:7.6 (957.2) 원시적인 종교는, 잘못된 두려움의 강력하고도 장엄한 기세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기원된 진정한 영적 기세인 생각 조절자의 증여를 위하여, 인간 마음이라는 토양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그 신성한 조절자들은 그 후로 하느님-두려움을 하느님-사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해 왔다. 진화는 속도가 느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효력이 있다.

86:7.7 (957.3) [네바돈의 저녁별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87 편 귀신 예배종파

87:0.1 (958.1) 귀신 예배종파는 불운에 대한 위험을 상쇄시키는 것으로써 진화되었다; 그것의 원시적인 종교적 계율은 불운에 대한 염려와 죽음에 대한 지나친 공포에서 발생되었다. 이러한 초기 종교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신(神)을 인정하거나 또는 초인간을 존경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었다; 그것들의 예식은 대부분 부정적인, 귀신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쫓아버리기 위해서, 또는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귀신 예배종파는 재난에 대비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보다 높고 장래의 보답을 위한 투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87:0.2 (958.2) 사람은 귀신 숭배와 오랜 세월 동안 쓰라린 투쟁을 해왔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귀신-영에 대한 두려움에 사람이 비굴하게 노예가 되었던 이러한 그림보다 더 측은한 느낌을 일으키도록 그려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바로 이러한 두려움의 탄생과 함께, 인류는 종교적 진화의

오르막길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인간의 상상력은 자아의 바닷가를 떠나갔고, 참된 신(神), 실제 하느님의 개념에 도달할 때까지 닳을 내릴 곳을 다시는 발견하지 않을 것이다.

제 1 장. 귀신에 대한 두려움

87:1.1 (958.3) 죽음은 그 물리적인 몸체로부터 또 하나의 귀신이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움을 주게 되었다. 고대의 사람들은 죽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귀신과 투쟁하게 되는 불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그들은 그 귀신을 설득하여 죽음의 현장을 떠나도록 만들려고, 죽은 자들의 나라를 향해 여행하도록 만들려고 항상 애를 썼다.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심한 기간은, 죽는 순간에 그것이 밖으로 나온 때로부터, 나중에 귀신의 고향 나라, 희미하고도 원시적인 개념의 거짓 천국으로 떠나게 되는 때까지로 추정되는 과도기이었다.

87:1.2 (958.4) 미개인들은 비록 귀신들에게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신임하였지만, 초자연적인 지능을 갖고 있다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 귀신들을 속이고 기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속임수들과 술책들이

실천되었다; 한편 문명인도 경건함의 겉으로 나타나는
현시활동이 심지어는 전지(全知)하신 신(神)도 어느
정도는 속일 수 있다는 희망 위에 있는 많은 신앙에 여전히
얽매어 있다.

87:1.3 (958.5) 원시인들은 질병을 두려워했는데, 그것이 죽음의
전조가 되는 것을 여러 번 지켜보았기 때문이었다. 만약에
부족의 주술사가 앓는 개별존재를 고치지 못하면, 대개는
환자를 가족들이 기거하는 오두막으로부터 옮겨서,
격리된 채로 죽을 수 있도록 보다 작은 오두막 또는 야외에
눅혀놓았다. 죽음이 발생했던 집은 대체로 파괴시켰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을 항상 피해 다녔고,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고대인을 튼튼한 거처를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또한 그것은 영구적인 마을이나 도시를
건설하는 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87:1.4 (958.6) 미개인들은 자기 씨족 중에서 누가 죽으면 밤을
지새우며 앉아서 이야기하였다; 시체 근처에서 잠이 들면
자기들도 역시 죽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였다.
시체로부터 전염된다는 생각이 죽은 자에 대한 두려움을
구체화시켰고, 모든 민족들은 시체와 접촉한 개별존재를

정화시키도록 고안된 복잡한 정결 예식을 한 때 채택했었다. 고대의 사람들은 시체에게 빛이 비춰져야만 한다고 믿었다; 시체를 어두운 장소에 방치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았다. 20세기에 이르러서도, 시체 안치실에 촛불을 켜놓고 있으며, 사람들이 시체를 지키고 있다. 소위 문명인이라는 사람들도 생명에 대한 자신들의 철학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벽하게 제거하지는 못하고 있다.

87:1.5 (959.1) 그러나 이러한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귀신을 속이려고 애쓰고 있다. 사람이 죽은 오두막을 부수지 않는 경우에는, 시체를 내갈 때, 문을 통하지 않고 벽에 구멍을 내어서 운반한다. 이러한 방법은 귀신을 혼동시키기 위해, 그것이 머물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었다. 또한 애곡하는 사람들은 장례식에서 돌아올 때 다른 길을 이용하였는데, 그 귀신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귀신이 무덤으로부터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방지책으로, 되돌아오는 길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술책들이 실천되었다. 귀신을 속이기 위해 남자와 여자의 옷을 서로 바꾸어 입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애곡하는

의상은 유족들을 변장시키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나중에는 죽은 사람에 대한 존중을 표현함으로써 그 귀신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

제 2 장. 귀신 달래기

87:2.1 (959.2) 종교에 있어서, 귀신을 진정시키는 소극적인 프로그램이, 영을 뜻대로 움직이고 영에게 탄원하는 적극적인 강령보다 훨씬 전에 있었다. 인간의 경배에 있어서 최초의 행위들은 존경이 아니라, 방어의 현상들이었다. 현대인에게는 화재를 막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미개인들은 귀신에 의한 불운을 막는 것이 보다 훌륭한 지혜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보호를 확실하게 하려는 노력이 귀신 숭배의 기법들과 의식들을 제정하였다.

87:2.2 (959.3) 귀신의 큰 욕구를 신속하게 "가라앉힘"으로써 죽은 자들의 나라로 조용히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한 때 지배적이었다. 그 귀신을 진정시키는 예식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든 태만한 행동이나 실수가, 그것이 귀신의 나라로 가는 것을 분명히 지연시킨다고 여겼다. 이런 것이 그 귀신을 불쾌하게 만든다고 믿었으며, 화난

귀신이 재난과 불운 그리고 불행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였다.

87:2.3 (959.4) 장례식은 귀신이 된 혼으로 하여금 미래의 고향을 향해 떠나도록 설득하려는 사람의 노력에서 기원되었으며, 장례식 훈계는 기원적으로 새로운 그 귀신이 어떻게 그곳으로 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 그 귀신의 여행을 위해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이러한 물건들은 무덤 속에 또는 가까운 곳에 놓여졌다. 미개인들은 “귀신을 달래는데”—무덤 근처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기까지—3일 내지 1년이 걸린다고 믿었다. 에스키모 인들은 혼이 시체 주변에서 3일 동안 머무는 것으로 믿었다.

87:2.4 (959.5) 사람이 죽은 후에 침묵을 지키거나 애곡하는 것은, 귀신으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올 흥미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준수되었다. 자아-고문—상처—는 일반적인 애곡의 형태였다. 진보적인 많은 선생들은 이러한 행위를 없애고자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금식을 비롯한 다른 형태들의 자아-부정이 귀신들을 즐겁게 만든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귀신들이 죽은 자들의 나라로

실재적으로 떠나기 직전까지 숨어있는 과도기 기간 동안,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긴다고 생각하였다.

87:2.5 (959.6)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또는 자주 애곡하는 일은 문명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큰 요소들 중의 하나였다. 여러 주일 그리고 심지어는 매 년 여러 달의 기간이, 정말로 이러한 비생산적이고 쓸데없는 애곡하는 일에 소모되었다. 장례 행사를 위하여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사람들이 고용되었다는 사실은, 그 애곡이 예식적인 것이었고 슬픔에 대한 징표가 아니었음을 설명해 준다. 현대인들은 죽은 사람에 대한 존중에서 그리고 사별(死別)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애곡하기도 하지만, 고대의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

87:2.6 (959.7) 죽은 사람의 이름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사실, 그 이름들이 언어로부터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이름들은 금기가 되었으며, 이런 식으로 해서 언어들은 빈번하게 약화되었다. 이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결코 언급하지 않는 이름 또는 낱”과 같은, 상징적인 말과 비유적인 표현을 배가(倍加) 시키게 되었다.

87:2.7 (960.1) 고대의 사람들은 귀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에 너무나도 열심이였기 때문에 삶 속에서 희망하였던 모든 것들을 그 값으로 바쳤다. 귀신들이 아내들과 종들을 원한다고 여겼으며; 어떤 부자 미개인은 자기가 죽을 때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노예 아내가 산채로 함께 매장될 것을 요구하였다. 나중에는 과부가 자기 남편의 무덤에서 자살하는 것이 관습이 되기도 하였다. 아이가 죽었을 때, 어른 귀신이 그 어린 귀신과 동행하면서 돌보아 주기 위해, 그 어머니나 숙모(고모, 이모) 또는 할머니가 목을 매어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정말로 관습을 위반하여 계속 살 수도 있었지만, 원시인들이 누렸던 기쁨이 거의 없는 그러한 삶을 귀신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박탈하였던 것이다.

87:2.8 (960.2) 족장이 죽은 경우에는 많은 것들을 팔려 보내는 것이 관례였으며; 주인이 죽으면 그 노예들을 죽여서 귀신의 나라에서 그를 섬길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보르네오 사람들은 아직도 동행자 안내자를 지명하고 있다; 노예 한 사람을 죽여서 죽은 주인과 함께 귀신의 여행에 동반하게 한다. 죽임을 당한 귀신들이 살인한

자들의 귀신들을 노예로 삼고 싶어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개념이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를 잘라오도록 만들었다.

87:2.9 (960.3) 귀신들이 음식의 냄새를 좋아할 것이라고 믿었다; 장례식에서 음식이 제공되는 일이 한 때 보편적으로 행해졌다. 음식을 먹기 전의 기도에 해당하는 원시적인 방법은 마술적인 문구를 중얼거리면서 음식 한 조각을 불에 던져 넣는 것이었는데, 영들을 달래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

87:2.10 (960.4) 죽은 자들이 자기가 살았을 때 소유하였던 도구들과 무기들의 귀신들을 이용할 것이라고 여겨졌다. 계약을 파기시키는 것은 “그것을 죽이는” 것이었으며, 그렇게 하여 그 귀신이 귀신 나라에서의 봉사를 위하여 통과하도록 풀려나게 하였다. 또한 재물을 태우거나 묻음으로써 희생제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고대에는 장례식에서의 낭비가 심하였다. 후대의 종족들은 죽은 자를 위한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물건이나 사람들 대신에 종이로 모형들을 만들고 그림을 이용하였다. 재물을 땅에 묻거나 태우는 대신에 친족에게 물려주게 되었을 때 문명이 크게 진보되었다. 이로쿼이족

인디언들은 장례식에서의 낭비를 많이 개선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 보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북부 지역의 적색 인종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었다. 현대인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습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현세적인 많은 재물들이 아직도 장례 예식과 죽은 자에 대한 예식(禮式)에 소모되고 있다.

제 3 장. 조상 경배

87:3.1 (960.5) 귀신 예배종파의 진보에 따라 조상 경배가 필연적으로 발생되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일반적인 귀신과 보다 높은 영들, 진화하는 하느님들 사이를 연결시켜 주게 되었기 때문이다. 초기의 하느님들은 단순히 영화롭게 된 죽은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다.

87:3.2 (960.6) 조상 경배는 기원적으로 경배보다는 두려움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러한 신앙들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과 경배를 더욱 퍼뜨리는 일에 확실하게 기여하였다. 초기 조상-귀신 예배종파를 신봉한 사람들은 하품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였는데, 그러한 때에 해로운 귀신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87:3.3 (960.7) 자녀들을 양자로 삼는 관습은, 죽은 후에 그 혼의 평화와 진보를 위해 누군가가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미개인들은 자기 동료들의 귀신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으며, 죽은 이후의 자기 귀신의 안전한 행위성을 계획하는 데에 여가 시간을 썼다.

87:3.4 (960.8) 대부분의 부족들은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전체-귀신들에 대한 축제를 시행하였다. 로마인들은 12가지의 귀신 축제를 행하였고 매 년 마다 예식을 올렸다. 한 해의 반 정도는 이러한 고대의 숭배와 연관된 여러 종류의 의식에 바쳐졌다. 어떤 로마 황제는 축제일들을 일 년에 135 일로 줄임으로써 이러한 실천 관행들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87:3.5 (961.1) 귀신 예배종파는 계속 진화되었다. 귀신들이 미완(未完)의 상태로부터 보다 높은 위상의 실존으로 올라간다고 상상하였기 때문에, 귀신 예배종파는 결국에는 영들에 대한 경배로 그리고 심지어는 하느님들에 대한 경배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보다 진보된 영들에 대한 다양한 믿음들에는 상관없이, 모든 부족들과 종족들이 한 때 귀신을 믿었었다.

제 4 장. 선한 영과 악한 영의 귀신

87:4.1 (961.2)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세계적 종교의 근원이었다; 여러 시대에 걸쳐서 많은 부족들이 같은 종류의 귀신들에 대한 옛 믿음을 고수하였다. 그들은 귀신이 즐거울 때 사람에게 행운이 따라오고 귀신이 화날 때 불운이 임한다고 가르쳤다.

87:4.2 (961.3) 귀신을 두려워하는 예배종파가 확대되자, 보다 높은 유형의 영들, 어떤 개별 인간과 명확하게 정체화되지 않는 영들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다. 그들은 귀신나라의 권역으로부터 진보하여 보다 높은 영의 나라로 졸업한 또는 영화롭게 된 귀신들이었다.

87:4.3 (961.4) 두 가지 종류의 영적(靈的) 귀신들에 대한 개념은 속도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전 세계적으로 진보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영에 대한 새로운 체계는 부족에서 부족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었다; 전 세계에 걸쳐서 독립적으로 발생되었다. 확대하는 진화적 마음에게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관념의 힘은 그것의 실체 또는 정당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신속하고 단순한 적용의 생생함과 보편성에 있다.

87:4.4 (961.5) 훨씬 나중에 사람의 상상력은 선한 그리고 악한 초자연적 대리자 둘 모두의 개념을 상상하게 되었는데; 귀신들은 선한 영들의 차원으로 전혀 진화하지 못하였다. 귀신을 두려워하는 초기의 단일(單一) 영 체계는 점차적으로 이원적(二元的) 영 체계, 이 세상의 관련사들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통제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진화하였다. 마침내 행운과 불운은 그들 각각의 통제자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그 두 계급들 중에서 불운을 가져오는 쪽이 더욱 활동적이고 숫자도 더 많은 것으로 여겨졌다.

87:4.5 (961.6)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교리가 최종적으로 성숙되자, 모든 종교적 신앙에게 가장 널리 퍼지게 되었고 계속 유지되었다. 이러한 이원론(二元論)은 위대한 종교-철학적 진보를 대표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행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관된 초인간적 존재들에 대해 동시에 믿는 한편, 행운과 불운 모두를 사람이 설명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영들은 선한 쪽이나 악한 쪽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가장 원시적인 종교들의 단일 영 체계의 초기 귀신들이 상상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완벽하게 변덕스러운 존재로 생각되지는 않았다. 사람은

마침내 행실에 있어서 모순이 없는 초인간적인 기세들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은 종교 진화의 전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인간 철학의 확대에 있어서 진리에 대한 가장 중대한 발견들 중의 하나였다.

87:4.6 (961.7) 어쨌든, 진화적인 종교는 이원적(二元的)인 영 체계의 개념에 대한 심한 대가를 지불하였다. 사람의 초기 철학은, 오직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선하고 다른 하나는 악한 영들을 가정함으로써만 현세적인 행운의 변화와 영의 불변성을 조화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이 사람으로 하여금 운수의 변화무쌍함과 변하지 않는 초인간적 기세들에 대한 개념을 조화시킬 수 있게 하였는데, 이러한 교리는 그 후로 계속 종교가들로 하여금 우주의 합일성을 잘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진화 종교의 하느님들은 대개 어두움의 권세들에 의해서 대립되었다.

87:4.7 (962.1) 이 모든 것의 비극은, 이 관념들이 사람의 원시적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 때, 악하거나 조화되지 않는 영들이 어느 세계에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 있다. 그러한 불행한 상황은 칼리가스티아의

반란 이후까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직 오순절까지만 지속되었다. 우주의 조화-협동을 이루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은, 심지어 20세기에 이르러서도, 인간의 철학 속에서 매우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다; 세계적인 종교들 대부분은 창발 하는 귀신 숭배에 대한 오래 전의 문화적 흔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제 5 장. 진보하는 귀신 숭배

87:5.1 (962.2) 원시인은 영들과 귀신들이 거의 무제한적인 권리를 갖는 반면 의무는 갖지 않는 것으로 여겼으며; 영들은 사람이 여러 가지의 의무를 갖지만 권리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여겼다.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의무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실패할 때 영들에 의해서 무시당한다고 믿었다. 귀신들이 인간의 관련사에 간섭하지 않는 대가로 계속적인 봉사를 드리도록 강요한다는 것이 인류의 일반적인 믿음이었으며, 최소한의 불운이 귀신의 행위에 전가되었다. 초기의 인간들은 하느님들에게 당연히 바쳐야 할 명예를 빠뜨리는 것에 대해 너무나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알려진 모든 영들에게 희생 제물들을 바친 후에는, 속속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알려지지 않은 하느님들”에게도 다른 희생 제물을 바쳤다.

87:5.2 (962.3) 그리고 이제 단순한 귀신 예배종파 뒤에는, 보다 진보되고 비교적 복잡한 영-귀신 예배종파의 관습, 사람의 원시적인 상상력 속에서 진화됨에 따른 보다 높은 영들에 대한 봉사와 경배가 생겨났다. 종교적인 의식 절차는 영의 진화와 진보에 보조를 맞추어야만 한다. 확대된 예배종파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에 대한 믿음과 관련되어 실천되는 자아-유지, 영적 환경에 대한 자아-조절의 기술에 불과하다. 산업적이고 군사적인 조직체들은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환경들에 대한 조절들이다. 그리고 양성(兩性)의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결혼이 발생되었듯이, 종교적인 조직은 보다 높은 영적 기세들과 영적인 존재들을 믿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진화하였다. 종교는 우연한 신비적 사건에서의 자신의 환상에 대한 사람의 조절을 나타낸다. 영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따른 경배는 불운에 대한 보험, 번영 정책으로써 채택되었다.

87:5.3 (962.4) 미개인들은, 선한 영들은 자기들의 일을 하면서 인간 존재들에게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악한

귀신들과 영들은 유쾌한 기분이 유지되어야 하는 존재였다. 따라서 원시 민족들은 그들의 고마운 영들보다는 악의에 찬 귀신들에게 더욱 관심을 쏟았다.

87:5.4 (962.5) 인간의 번영이 특별히 악한 영들의 질투심을 자극한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들이 보복하는 방법은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그리고 악한 눈의 기법에 의해서 되받아 치는 것이라고 여겼다. 영의 기피와 밀접하였던 예배종파의 현상은 악한 눈의 음모와 관계되어 있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전 세계적인 것이 되었다. 아름다운 여인들은 악한 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베일로 가렸으며; 나중에는 아름답게 여겨지고 싶은 많은 여인들이 이러한 실천 관행을 채택하였다. 악한 영들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어두워진 후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는 것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으며, 초기의 기도문들 속에는 “우리를 악한 눈으로부터 구해 달라”는 탄원이 항상 포함되어 있었다.

87:5.5 (962.6) 코란 속에는 한 장(章) 전체가 악한 눈과 마법 주문에 관계되는 글로 채워진 부분이 있으며,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전적으로 믿었다. 남근(男根) 숭배는 악한 눈에

대항하는 방어책으로 형성되었다. 생식 기관들은 그것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주물로 여겨졌다. 악한 눈은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과 관련된 최초의 미신적 행위, 어머니를 따르도록 만들었으며, 그 예배종파는 한 때 거의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다.

87:5.6 (963.1) 질투심은 뿌리 깊은 인간적 특색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인은 그것을 자기들의 초기 하느님들에도 속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사람은 한때 귀신들을 속이는 것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그 후로는 곧이어 영들을 속이기 시작하였다. 사람은 말하기를, "영들이 우리의 아름다움과 번영을 질투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기 흉하게 치장하고 우리의 성공을 하찮게 말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겸손은 자기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투하는 영들을 따돌리고 속이려는 시도였다.

87:5.7 (963.2) 영들이 인간의 번영에 대해 질투심을 갖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채택된 방법은, 행운을 가져온 또는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나 사람에게 욕을 심하게 쏟아 붓는 것이었다. 자기 자신 또는 가족에 관하여 칭찬하는 말을

얕보는 관습은 이러한 식으로 기원되었다; 결국에는 예의바른 겸손과 사양 그리고 공손함으로 진화하였다. 동일한 동기에 따라서, 얼굴이 추하게 보이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아름다움은 영들의 질투심을 자극하였다; 죄 많은 인간의 자부심의 전조가 되었다. 미개인들은 추한 이름을 찾으려고 애썼다. 그 예배종파의 이러한 특징은 예술의 발전에 큰 장애 요인이었으며, 오랫동안 세상을 침울하고 추하게 만들었다.

87:5.8 (963.3) 영 예배종파 밑에서, 삶은 기껏해야 하나의 도박, 영의 통제의 결과에 불과하였다. 사람의 미래는, 영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력이나 열심 또는 재능의 결과가 아니었다. 영을 달래기 위한 예식들은 무거운 부담을 안겨주었는데, 삶을 진저리나게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지나가면서, 여러 인종들이 이러한 초(超)귀신들에 관한 교리를 개선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어떤 세대도 아직 감히 그것을 전혀 거부하지 못하고 있다.

87:5.9 (963.4) 영들의 목적과 뜻은 예언과 신(神)의 계시 그리고 표적에 의해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메시지들은 점(占), 예언적 마술, 괴로운 체험, 그리고 점성술에 의해서 해석되었다. 전체적인 예배종파는, 속임수에 의한 유혹을 통하여 영들을 진정시키고 만족시키며 매수하도록 고안된 음모였다.

87:5.10 (963.5) 그리하여 새로운 그리고 확대된 세계적 철학들이 다음과 같은 면에서 발생되었다:

87:5.11 (963.6) 1. 의무—영으로 하여금 적어도 중간 위치에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해야만 하는 것들.

87:5.12 (963.7) 2. 권리—영을 적극적으로 이겨서 유익이 되도록 계획된 온당한 행위성과 예식.

87:5.13 (963.8) 3. 진리—영에 대한 정확한 납득과, 영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에 따른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

87:5.14 (963.9) 고대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하여 알고자 하였던 것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불운을 피하기를 원하였다. 점(占)은 단순히 재난을 피하려는 시도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시대 동안에는, 꿈이 예언으로 간주된 반면, 일상적이 아닌 모든 것들이 어떤 징조로 고려되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문명화된

종족들도 징후들과 표시들 그리고 옛날의 발전하는 귀신
예배종파의 다른 미신적 잔재들에 대한 믿음으로 저주를
받고 있다. 서서히, 매우 느리게, 사람은 그러한 방법들을
포기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진화적인 생명의 계단을
점차적으로 그리고 고생하면서 올라갔다.

제 6 장. 강제 퇴거와 축귀(逐鬼)

87:6.1 (963.10) 사람들이 귀신만을 믿었을 때에는, 종교 예식이
더욱 개인적인 반면, 보다 약하게 조직되어 있었지만, 높은
영들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높은 영적 방법들”이 채택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영을 달래는 기법을 개선하고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는 영들에 대항하는 방어책의 형성을 직접적으로
인도하였다. 사람은 현세의 삶 속에서 작용하는 통제할 수
없는 기세들 앞에서 정말로 아무 것도 어찌할 수 없음을
느꼈으며, 그의 열등감이 그로 하여금 어떤 보상하는 조절
방법, 우주에 대한 사람의 일방적인 투쟁 속에서 불평등을
없애주는 어떤 기법을 발견하는 시도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87:6.2 (964.1) 그러한 예배종파의 초기 시대에, 영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람의 노력들은 달래는 일, 어떤 대가를 지불하여 불운을 면하기 위한 유혹에 의한 시도들에 제한되어 있었다. 귀신 예배종파의 진화가 선한 영들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개념으로 진보되자, 이러한 예식들은 더욱 긍정적인 성질의 시도들 쪽으로, 행운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사람의 종교는 더 이상 완벽하게 부정적인 상태에 머물지 않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행운을 얻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게 되었다; 곧 계략들을 발명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에 의하여 영이 협조하도록 강요할 수 있게 되었다. 신앙을 가진 자는 자기 자신이 발명하는 영의 환영들의 끊임없는 요구들 앞에서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서 있지 않게 되었다; 그 미개인은 영의 활동을 지배하고 영의 도움을 강요할 수 있는 무기들을 발명하기 시작하였다.

87:6.3 (964.2) 방어에 있어서 사람의 최초의 노력들은 영들을 대항하는 방향으로 인도되었다. 여러 시대들이 지나가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대항할 수 있는 기법들을 고안해 내기 시작하였다. 영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을 멀리 쫓아버리기 위하여 많은 기법들이

개발되었는데,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87:6.4 (964.3) 1. 머리를 잘라내고 시신을 무덤 속에 묶어 둠.

87:6.5 (964.4) 2. 사람이 죽은 집에 돌을 던짐.

87:6.6 (964.5) 3. 시체의 다리를 제거하거나 부러뜨림.

87:6.7 (964.6) 4. 돌 밑에 묻음, 현대적인 묘비의 기원 중의 하나임.

87:6.8 (964.7) 5. 화장(火葬), 귀신에 의한 재난을 막기 위해 나중에 발명되었음.

87:6.9 (964.8) 6. 시체를 바다에 던짐.

87:6.10 (964.9) 7. 시체를 방치하여 야생 동물들이 뜯어먹게 함.

87:6.11 (964.10) 귀신들이 소음에 의해서 교란되고 깜짝 놀란다고 생각하였다; 고함소리와 종소리 그리고 북소리가 그들을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내쫓는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고대의 방법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 "밤을 새우는" 곳에서 여전히 성행되고 있다. 달갑지 않은 영들을 내쫓기 위하여 악취를 뿜는 조제물이 이용되었다. 영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형상들을 세워서 그들이 자기 모습을 보고 재빨리 도망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귀신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개들이 감지할 수 있고, 짖어댐으로써 경고를 준다고 믿었다; 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 수탉들이 운다고 믿었다. 수탉의 모양을 풍향기에 이용하는 것은 이러한 미신이 영속하는 것이다.

87:6.12 (964.11) 물은 귀신들을 대항하는 최고의 보호책으로 간주되었다. 거룩한 물은 다른 어떤 형태보다도 우월하였는데, 그 물은 사제들이 발을 씻은 것이었다. 불과 물은 모두 귀신들에게 지나갈 수 없는 걸림돌이 된다고 믿었다. 로마인들은 물을 가지고 시체 주위를 세 번 돌았다; 20세기에 있어서는 시체 위에 성수(聖水)를 뿌리고 있고, 묘지에서 손을 씻는 것이 아직도 유대인들의 예식 행사로 남아있다. 세례는 물로 하는 후대의 의식 행사의 한 부분이었다; 원시 시대의 목욕은 종교적인 예식이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목욕이 위생적인 실천 관행으로 바뀌었다.

87:6.13 (964.12) 그러나 사람은 귀신을 강압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종교적인 의식과 다른 실천 관행들을 통하여 영의

활동을 강요하려고 곧 시도하였다. 축귀(逐鬼)는 어떤 한 영을 채택하여 다른 영을 통제하거나 추방시키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술책들은 귀신들과 영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도 이용되었다. 선한 세력들과 악한 세력들에 대한 이원적(二元的)-영-체계 개념은 한 쪽 대리자와 다른 편을 싸움 붙이도록 시도하기 위한 엄청난 기회를 사람에게 제공하였는데, 왜냐하면, 만일 힘이 센 사람이 악한 사람을 정복할 수 있다면, 분명히 강한 영이 열등한 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원시적인 형태의 저주는 낮은 계급의 영들을 겁주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강제적인 실천 관행이었다. 나중에는 이러한 관습이 확대되어 적들에게 저주를 퍼붓게 되었다.

87:6.14

(965.1)

보다 오래된 사회관례의 풍습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영들과 반신반인(半神半人)의 존재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현대인도 똑같은 과정의 과오를 범하고 있다. 너희는 일상적인 언어에 있어서는 평범한 말로 서로 이야기하지만, 기도할 때에는, 지나간 세대의 옛날 문체, 소위 엄숙한 문체라고 불리는 형태를 습관적으로 이용한다.

87:6.15 (965.2) 또한 이러한 교리는 성전에서의 매춘과 같은, 많은 성(性) 자연본능의 종교적-의식이 복귀되었음을 설명해 준다. 이러한 원시 관습으로 복귀하는 것이, 많은 재난들을 확실하게 방지하는 보호조치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이들 단순한-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모든 행위들은, 현대인들이 난잡하다고 부르는 형태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87:6.16 (965.3) 그 다음에는 예식적인 맹세들이 생겼고, 곧 그 뒤를 이어서 종교적인 서약과 신성한 맹세들이 행해졌다. 이러한 맹세들 대부분은 자아-고문과 자아-학대의 행위를 동반하였다; 나중에는 금식과 기도가 동반되었다. 나중에는 자아-부정이 틀림없는 강압 수단으로 여겨졌으며; 이것은 성(性) 억제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그렇게 여겨졌다. 그리하여 원시인은 자신의 종교적인 실천 관행에 있어서 단호한 금욕 생활을 일찍부터 발전시켰는데, 원하지 않는 영들로 하여금 그러한 모든 고난과 궁핍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반응하도록 강압할 수 있는 예식에는, 자아-고통과 자아-부정이 효험이 있다는 믿음이었다.

87:6.17 (965.4) 현대인은 더 이상 드러내 놓고 영들을 강요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神)과 흥정하려는 기질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맹세하고, 나무를 두드리며, 손가락을 겹쳐 보이고, 침을 뱉으면서 어떤 진부한 말들을 하는데; 그것은 한 때 마술적인 처방(處方)이었다.

제 7 장. 예배종파주의의 본성

87:7.1 (965.5) 사회 조직체에서의 예배종파 유형은 계속 유지되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도덕적 정서와 종교적 충성의 보존과 격려를 위한 상징성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예배종파는 “옛 가족들”의 전통들로부터 발생되고 확립된 제도로써 계속 영속하였다; 모든 가정들은 어떤 종류의 예배종파를 간직하고 있다. 영감을 주는 모든 이상(理想)은 영속하는 어떤 상징표현을 붙잡으려고 한다.—생존을 보장하고 실현을 증강시키게 되는 문화적 현시활동을 위한 어떤 기법을 추구한다. 예배종파는 감정을 조성하고 만족시킴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성취한다.

87:7.2 (965.6)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사회적인 문화 또는 종교적인 진보에 있어서의 모든 매력적인 움직임이 예식, 상징적인 예식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예식이 무의식적인 성장을 더욱 이룩하면 할수록,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더욱 강력하게 사로잡았다. 예배종파는 정서를 보호하고 감정을 만족시켰지만, 사회적인 부흥과 영적인 진보에는 언제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87:7.3 (965.7) 예배종파가 사회적인 진보를 항상 방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표준과 영적 이상을 믿는 매우 많은 현대인들이 적당한 상징 표현, 아무 소속될만한 것이 없다—서로를 후원하는 예배종파가 없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종교적 예배종파는 제작될 수 없다; 그것은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종교예식이 권한에 의해 독단적으로 표준화되지 않는다면, 어떤 두 집단도 동일시될 수 없다.

87:7.4 (965.8) 초기의 그리스도교 예배종파는 그 때까지 생각해 내거나 고안해 내었던 어떤 예식보다도 가장 효과적이고 매력적이며 영구적인 것이었지만, 그 대부분의 가치는

너무 많은 기원적이고 바탕을 이루는 교리들의 파멸로
인하여 과학적 시대 안에서 계속적으로 파괴되어 왔다.
그리스도교 예배종파는 많은 근본적인 관념들을
잃음으로써 생명력을 계속 잃어 왔다.

87:7.5 (965.9) 과거에, 예배종파가 신축성이 있을 때, 상징
표현이 확대될 수 있을 때 진리가 급속도로 자라고
자유롭게 확대되었다. 풍부한 진리와 조절할 수 있는
예배종파는 사회의 진보가 빨라지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무의미한 예배종파은, 그것이 철학을 대체하고
이성(理性)을 노예로 만들려고 애쓸 때, 종교를 망친다;
진정한 예배종파는 자라난다.

87:7.6 (966.1) 결점들과 불리한 조건들에 상관없이, 진리에 대한
모든 새로운 계시는 새로운 예배종파 단체가 발생되게
하며, 심지어 예수의 종교에 대한 수정도 새롭고도 적절한
상징 표현을 발전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현대인은 자신의
새롭고도 확대하는 관념들과 이상들과 충성심들에 맞는
어떤 상징표현을 발견해야만 한다. 이러한 증진된 상징은
반드시 종교적인 삶, 영적인 체험으로부터 발생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다 높은 문명의 높은 상징표현은,

하느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개념에 입각해야만 하며, 사람의 형제신분에 대한 강력한 이상(理想)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한다.

87:7.7 (966.2) 옛날의 예배종파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다; 새로운 예배종파는 사랑의 적용으로부터 발생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예배종파는, 옛날의 예배종파와 마찬가지로, 정서를 육성하고 감정을 만족시키며 충성심을 증진시켜야만 하지만; 그 이상(以上)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진보를 촉진시켜야만 하고, 조화우주적 의미들을 증진시켜야만 하고, 도덕적 가치들을 증강시켜야만 하고, 사회적인 발전을 장려해야만 하고 높은 유형의 개인적인 종교적 생활을 고무시켜야만 한다. 새로운 예배종파는 현세와 영원한 세계 모두—사회적인 그리고 영적인—에게 해당되는 삶의 최극 목표들을 제공해야만 한다.

87:7.8 (966.3) 어떤 예배종파도, 그것이 가정(家庭)에 대한 생물학적, 사회적, 종교적 의의(意義)에 기초를 두지 않는다면, 사회적인 문명과 개별적인 영적 달성의 진보를 허용하고 그에 기여할 수 없다. 계속 살아남는 예배종파는

끊임없는 변화의 현존 속에서 영원한 것을 상징화 시켜야만 한다; 항상 변화하는 사회적 변형의 흐름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을 찬미해야만 한다. 그것은 참된 의미들을 깨닫고 아름다운 관계들을 강화시키며, 실제적 숭고함의 선한 가치들에게 영광을 찬미해야만 한다.

87:7.9 (966.4) 그러나 새롭고도 만족스러운 상징표현을 발견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은, 현대인들이 집단적으로는 과학적인 태도를 고집하고 미신을 피하며 무지함을 멸시하는 반면, 개별존재로는 모두 신비를 갈망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숭배하기 때문이다. 어떤 예배종파도 어떤 능수능란한 신비성을 체현하고 어떤 달성할 수 없는 값진 것을 감추고 있지 않는 한 살아남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상징표현은 그 집단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개별존재에게도 의의(意義)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모든 봉사할 수 있는 상징표현의 형태들은, 개별존재들이 자기 자신의 독창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고, 개인이 자기 동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만약에 새로운 그 예배종파가 정지된 상태 대신에 역동적인 상태일 수만 있다면, 그것은

현세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인류의 진보에 실제로 훌륭한 어떤 것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87:7.10 (966.5) 그러나 예배종파—예식이나 표어 또는 목표의 상징표현—은 만약에 그것이 너무 복잡하다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헌신에 대한 요청, 충성심에 대한 반응이 들어 있어야만 한다. 모든 효력적인 종교는 반드시 훌륭한 상징표현을 발전시키며,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예식이 모든 사회적 도덕적 영적 진보를 지연시키고 방해시킬 뿐인, 속박하고 추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진부한 예식이 되는 결정화(結晶化)되는 일이 방지되도록 잘해야 할 것이다. 어떤 예배종파도, 그것이 도덕적 성장을 지연시키고 영적 진보를 육성하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 예배종파는 그 둘레에서 개인성의 영적 체험의 살아있고 역동적인 몸체- 참된 종교가 자라는 뼈대이다.

87:7.11 (966.6) [네바돈의 찬란한 저녁별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88 편 주물숭배, 부적과 마술

88:0.1 (967.1) 영이 무생물이나 동물 또는 인간 존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은, 매우 옛날에 생겨난 훌륭한

신념이었는데, 종교가 진화하는 시초부터 보편화되어 왔다. 영을 소유한다는 이러한 교리는 주물숭배에 지나지 않았다. 야만인들은 필연적으로 주물(呪物)을 경배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영을 매우 논리적으로 경배하고 그리고 존경한다.

88:0.2 (967.2) 처음에는, 주물에 들어 있는 영이 죽은 사람의 귀신이라고 믿었다; 나중에는, 보다 높은 영들이 주물들 속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상상하였다. 그리하여 주물숭배는 결국에는, 귀신들과 혼들 그리고 영들과 악령에 사로잡히는 것에 대한 원시적인 관념들 모두와 합쳐졌다.

제 1 장. 주물(呪物)에 대한 믿음

88:1.1 (967.3) 원시인은 색다른 모든 것들을 항상 주물로 여기고자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많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아팠다가, 무엇인가가 발생하여, 그 병이 나았다. 여러 가지 약들에 대한 평판과 병을 고치는 우연에 의한 방법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어난다. 꿈과 관련된 대상물들도 마찬가지로 주물들로 전환된다. 산들이 아니라 화산들이 주물들로 바뀌었다;

별들이 아니라 혜성들이 주물들로 바뀌었다. 초기 사람은, 유성들과 운석들이 지구를 방문하는 특별한 영들의 도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88:1.2 (967.4) 최초의 주물들은 특별하게 두드러진 모양의 조약돌들이었고, 사람은 그 후로 항상 “신성한 돌들”을 찾아다녔으며; 한 줄로 꿰 구슬 모양은 한 때 신성한 돌들을 수집한 한 별의 마법의 장식물이었다. 많은 부족들이 돌로 된 주물들을 갖고 있었지만, 카바 신전과 스쿰의 돌처럼 보존된 경우는 아주 드물다. 불과 물 역시 초기 주물들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불에 대한 경배는 성스러운 물에 대한 믿음과 함께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88:1.3 (967.5) 나무를 주물로 섬기는 것이 나중에 발전되었지만, 어떤 부족들 사이에서는 자연 경배가 계속 남아 있게 됨으로써, 어떤 종류의 자연의 영이 마법의 장식물들 속에 거주하는 것을 믿도록 만들었다. 식물들과 과일들이 주물들이 되었을 때, 그것들은 금기가 된 음식이 되었다. 사과와 이러한 범주에 들어간 최초의 것들 중의 하나였다; 그래서 레반트 민족들은 그것을 결코 먹지 않았다.

88:1.4 (967.6) 만약에 어떤 동물이 사람의 살을 먹으면, 그 동물은 주물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는 파시 교도들에게 신성한 동물이 되었다. 만약에 그 주물이 동물이고 그 귀신이 그 속에 영구적으로 거주한다면, 주물송배가 윤회와 충돌될 것이다. 미개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동물들을 부러워하였다; 그들은 동물들보다 우월한 것을 느끼지 못하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짐승들과 비슷하게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88:1.5 (967.7) 동물들이 주물들로 여겨지게 되면, 주물이 된 동물의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금기가 뒤따라 나타났다. 꼬리 없는 원숭이들과 꼬리 있는 원숭이들은 사람을 닮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주물로 여겨지는 동물들이 되었다; 나중에는 뱀과 새 그리고 돼지가 비슷하게 간주하였다. 한때는 암소가 주물이 되면서, 우유가 금기로 되었으며 반면 그 배설물이 높이 존중받았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뱀을 존경되었고, 특별히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러하였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을 쫓아서 그것을 악한 영들의 대변자로 간주하였다. 아라비아 지역으로부터 인도 전역을 지나 적색 인종들의 모키 부족의 뱀 춤에 이르기까지, 뱀이 존경을 받아왔다.

88:1.6 (968.1) 한 주일 중에서 어떤 날들이 주물이 되기도 하였다.

금요일은 오랜 세월 동안 불운한 날로 여겨져 왔으며 13이라는 숫자는 불길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행운의 숫자 3과 7은 후대의 계시들로부터 유래되었다; 4는 원시인에게 행운의 숫자였고 네 지점의 둘레에 대한 초기의 인식으로부터 유래되었다. 가축이나 다른 소유물들의 숫자를 세는 것은 불행을 가져온다고 여겼으며, 고대의 사람들은 인구조사, “민족의 숫자를 세는 것”을 항상 반대하였다.

88:1.7 (968.2) 원시인은 성(性)에 대해 과도한 주물을 만들지

않았다; 생식 기능은 한정된 관심만을 받았을 뿐이었다. 미개인은 꾸밈이 없는 마음을 소유하였고, 음란하거나 호색적이지 않았다.

88:1.8 (968.3) 침은 강력한 주물이었다; 사람에게 침을

뱉음으로써 마귀들이 쫓겨난다고 여겼다. 노인이나 상급자에게는 침을 뱉는 것이 최고의 인사였다. 사람의 신체 부위들은 잠재적인 주물로 여겨졌는데, 특별히 머리카락과 손톱이 그러하였다. 족장들의 길게 자란 손톱은 고귀하게 여겨졌으며, 그것을 다듬고 남은

조각들은 강력한 주물이었다. 해골을 주물로 여기는 믿음은 머리를 자르는 후대의 행위를 많이 설명해 준다. 탯줄은 아주 높이 평가되는 주물이었다; 아프리카에서는 오늘날에도 그렇게 간주되고 있다. 인류의 최초의 노리개는 버리지 않고 모아둔 탯줄이었다. 진주 모양의 작은 알로 장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것이 사람의 최초의 목걸이었다.

88:1.9 (968.4) 곱사 등과 불구의 몸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주물로 간주되었다; 정신 이상자들은 달빛의 작용에 의해 그렇게 된 것으로 여겨졌다. 원시인은 특수한 재능과 정신병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정신박약아 들은 맞아죽거나 아니면 주물 개인성으로 존경되었다. 광란은 마법에 대한 대중적인 믿음을 점점 더 확고하게 만들었다; 간질 환자들이 사제와 주술사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술에 취한 상태는 영에 사로잡힌 형태로 간주되었다; 미개인이 실컷 마셨을 때에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머리에 나뭇잎을 꽂았다. 독물과 마취제가 주물이 되었다; 그것에 홀리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88:1.10 (968.5)

많은 사람들은 천재들을 현명한 영에 의해 사로잡힌 개인성들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곧 사기 행위와 속임수를 익히게 되었다. 주물로 취급되는 사람은 인간 이상의 존재로 여겨졌으며; 신성한 존재로 또는 심지어 절대로 오류가 없는 존재로 여겨졌다. 족장들, 왕들, 사제들, 선지자들, 그리고 교회의 통치자들이 그러하였으며, 결국에는 엄청난 힘을 휘둘렀고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제 2 장. 주물숭배의 진화

88:2.1 (968.6)

귀신들이 육체 속에서 살아있었을 당시에 자기들에게 속하였던 어떤 물체 속에 계속 거주하기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신앙 때문에 현대에 이르러서도 많은 유품들이 간직되고 있는 것이다. 고대의 사람들은 자기 영도자들의 뼈를 항상 존경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성인(聖人)들과 영웅들의 유골을 여전히 미신적인 경외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늘날에도 위대한 사람들의 묘지를 찾는 순례여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88:2.2 (968.7) 유품들에 대한 믿음은 고대의 주물숭배로부터 파생되었다. 현대 종교들의 역사적 유물은 미개인들의 주물을 합리화시키려는 노력을 의미하며, 그리하여 현대의 종교 체계 속에서 존엄과 존중대상의 자리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시도이다. 주물과 마술을 믿는 것은 야만적인 것이지만, 유물과 기적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당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88:2.3 (969.1) 화로(火爐)—벽난로—is 어느 정도 주물, 거룩한 장소로 여겨지게 되었다. 묘지들과 신전들이 최초의 미신적 숭배 대상 지역이 된 것은 시체들이 그곳에 묻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히브리인들이 숭배하던 장막은 모세에 의해서 더욱 고상한 경지로 높여져서 초월적인, 그 당시에 실존하던 하느님의 율법에 대한 개념의 주물이 간직된 장소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로 만든 제단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나안-사람들의 독특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느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느님의 영이, 실체 안에서 주물에 불과한, 그러한 돌 제단 속에 거하신다고 정말로 믿었다.

88:2.4 (969.2)

최초의 상징들은 유명한 죽은 사람들의 생김새와 그들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기념물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원시인들은 헌납 예식을 통하여 영이 그 형상 속으로 들어간다고 믿었다; 마찬가지로, 어떤 물체들이 축복을 받으면 그것은 부적이 되었다.

88:2.5 (969.3)

모세는, 달라마시아에서 통용되었던 고대의 도덕적 규약에 두 번째 계명을 덧붙이면서,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자행되던 주물숭배를 통제하려고 애썼다. 그는 주물로 신성시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형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신중하게 지도하였다. 그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늘을 날거나 땅 위에 기어 다니거나 또는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와 비슷한 형상을 만들거나 새겨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계명은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예술을 매우 퇴보시켰지만, 주물 경배는 줄여주었다. 그러나 모세는 매우 현명하였기 때문에 옛 주물들을 갑작스럽게 버리도록 시도하지는 않았으며, 그랬기 때문에 그는 종교적인 성물함(聖物函)인 동시에 전쟁을 위한 제단이었던 상자 속에 율법과 함께 특정한 유품들을 넣도록 승낙하였다.

88:2.6 (969.4) 말씀이 결국에는 주물들이 되었는데, 하느님의 말씀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더욱 특별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종교들의 신성시되는 책들이 사람의 영적 상상력을 가두어 놓는 미신적인 감옥이 되었다. 주물을 배격하려는 모세의 바로 그 노력이 최극의 주물이 되었다; 그의 계명은 나중에 예술을 망치는 데에 사용되었고 아름다움에 대한 기쁨과 동경심을 무효화 시키는 일에 사용되었다.

88:2.7 (969.5) 옛날에는 권한을 가진 주물 낱말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교리였는데,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모든 폭군들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교리적인 주물은 필사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배반하여 편협한 신앙, 광신, 미신, 불관용, 그리고 가장 지독한 야만적인 학대의 족쇄를 채우게 하였다. 지혜와 진리에 대한 현대의 존중은, 주물을-만드는 경향으로부터 보다 높은 사고(思考)와 이성(理性)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최근에 탈출하였을 뿐이다. 여러 종교가들이 성스러운 책으로 여겼던, 축적된 맹목적 숭배 기록들에 관해서는, 책 속에 있는 것이 진리일 뿐 아니라, 모든 진리가 그 책 속에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다. 만일 이들 성스러운 책 중에서 하나가 공교롭게도

지구가 평면이라고 말한다면, 오랜 세대 동안, 다른 한편으로는 온전한 남녀들이 행성이 둥글다는 분명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88:2.8 (969.6) 이들 신성시되는 책들 중의 하나를 열어보는 실천 관행으로 우연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을 따름으로써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결정이나 계획을 결정하려는 태도는, 터무니없는 맹목적 주물사상과 다름없다. “거룩한 책”을 두고 서약하거나 최극 숭배 대상에 대고 맹세하는 것은 정교한 주물사상의 한 형태이다.

88:2.9 (969.7) 그러나 그것은, 미개인 족장의 손톱을 다듬은 부스러기들에 대해 미신적으로 숭배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발전하여, 적어도 도덕적 지혜들이 “신성시되는 책”으로 모여지게 된 시기와 사건이 있기까지 여러 세기에 걸쳐서 선별된 그것들을 결국 반영한, 편지들, 법, 전설들, 우화들, 신화들, 여러 편의 시(詩)들, 그리고 연대기들의 훌륭한 수집품을 숭배하는 방향으로 실제 진화적 진보를 이룩하였음을 나타낸다.

88:2.10 (970.1) 주물이 되기 위하여, 말씀들은 영감(靈感)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했고, 신성하게 영감 되어 씌어졌다고

여겨지는 주문(呪文)이 교회의 권위를 확립하도록 직접적으로 이끌었고 반면에, 시민적 형식들에서의 진화가 국가의 권위가 성숙되도록 이끌었다.

제 3 장. 토템 숭배

88:3.1 (970.2) 주물숭배는, 거룩한 돌들에 대한 가장 오래된 신앙으로부터, 우상 숭배와 사람을 잡아먹는 풍습 그리고 자연 경배를 거쳐서, 토템 숭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원시적 예배종파들 전체 속에 면면히 흘러 내려왔다.

88:3.2 (970.3) 토템 숭배는 사회적 관습과 종교적 관습이 병합된 것이다. 근원적으로는 생물적 근원으로 추정되는 토템 동물을 존중하면 식량 제공이 보장된다는 그러한 생각이었다. 토템들은 하나에서 그 집단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그들 하느님의 상징이었다. 그러한 어떤 하느님은 씨족이 개인화된 것이었다. 토템 숭배는 다른 면에서 개인적 종교를 사회화하려는 시도의 한 위상이었다. 토템은 결국에는 현대의 여러 민족들의 깃발, 곧 나라의 상징으로 진화하였다.

88:3.3 (970.4) 주물 주머니, 마법의 주머니는 귀신이 들어 있다고 믿어지는 물건들로 훌륭하게 구색을 갖춘 내용물이 들어

있는 주머니였으며, 옛날의 주술사는 자기 능력의 상징인 그 주머니를 절대로 땅에 내려놓지 못하게 하였다. 20세기에 이르러서도 문명화 된 민족들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의식(意識)의 상징인 자기들의 깃발이 결코 땅에 닿지 않게 하려고 한다.

88:3.4 (970.5) 사제 직무의 휘장과 왕의 직책의 휘장은 결국에는 주물들로 숭배되었으며, 국가의 최극 권위라는 주물은, 씨족으로부터 부족으로, 종주권으로부터 주권으로, 토テム으로부터 깃발로 발전하는 여러 단계들을 거쳤다. 주물로 여겨지는 왕들은 “거룩한 권한”으로 통치하였고, 다른 여러 정부 형태들이 이루어졌다. 또한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주물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집단적으로 “여론”을 형성하였을 때의 일반적인 사람의 관념을 높이 평가하고 받든다. 한 사람의 의견 그 자체만으로는 별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민주적인 체제에 의해 집단적으로 기능할 때에는, 동일한 그 평범한 판단이 공의(公義)로운 결정과 정의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여진다.

제 4 장. 마술

88:4.1 (970.6) 문명인은 과학을 통하여 실제적인 환경의 문제들을 공격하지만; 미개인은 사람을 미혹시키는 귀신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마술에 의해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마술은 그 술책이 불가해한 것들을 끊임없이 해석할 것으로 추측되는 영적 환경을 조종하는 기법이었다; 자발적인 영의 협동을 획득하는 기술이었고 주물들 또는 보다 더 강력한 다른 영들을 이용하여 비자발적인 영의 도움을 강요하는 기술이었다.

88:4.2 (970.7) 마술과 요술 그리고 점(占)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이중적이다:

88:4.3 (970.8) 1.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보장받음.

88:4.4 (970.9) 2. 환경을 유리한 쪽으로 움직임.

88:4.5 (970.10) 과학의 목적은 마술의 목적과 일치한다. 인류는 명상이나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의 체험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그리고 고통스럽게 마술로부터 과학으로 진보를 이룩하고 있다. 사람은 점차적으로 진리에 접근하고 있고, 실수에서 시작하고, 실수에서

진보하며, 마침내는 진리의 입구에 도달하고 있다. 오직 과학적인 방법이 도래함으로써 사람은 똑바른 방향에 서 있게 되었다. 그러나 원시인은 실험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88:4.6 (970.11) 초기 미신에 대한 매력은 나중에 과학적인 호기심을 낳았다. 이러한 원시적인 미신들 속에는 진보적인 활동적 감정—두려움과 호기심이 함께 있는—이 있었으며, 옛날의 마술 속에는 진보적인 추진력이 있었다. 이러한 미신들은 지구의 환경을 알고 통제하고자 하는 인간 욕망의 창발을 대표하였다.

88:4.7 (971.1) 마술은 미개인들을 강력하게 사로잡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자연적인 죽음에 대한 개념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원죄에 대한 후대의 관념은, 자연적인 죽음의 원인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마술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 사람의 자연적인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가정하여 애매하게 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때도 있었다. 이것은 고대의 민족들의 숫자가 빨리 늘어나지 못한 이유들 중의 하나였으며,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부족들

속에서는 아직도 이것이 통용되고 있다. 고소를 당한 개별존재는 죽음에 직면하였을 때에도 대개 죄를 고백하였다.

88:4.8 (971.2) 마술은 미개인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미개인은 적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조각 위에 요술을 실천함으로써 실재적으로 그를 죽일 수 있다고 믿는다. 뱀에게 물려 죽는 것은 요술쟁이의 마술에 도움을 주었다. 두려움이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마술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지 못하였다. 원시 민족들은 마술을 너무나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실재적으로 그들을 죽였고, 그러한 결과들은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유지시키기에 충분하였던 것이다. 실패한 경우에는 항상 어떤 그럴듯한 해명이 만들어졌는데; 결함이 있는 마술에 대한 치유책은 더욱 마술적인 것이었다.

제 5 장. 마술적인 부적(符籙)

88:5.1 (971.3) 육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주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의 마술은 머리카락 그리고 손톱과 관련이 있었다. 육신적인 배설 행위를 은밀하게 행하는 습관은, 육체로부터 나온 어떤 것을 적(敵)이 취하여 해로운 마술을

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유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부터 나온 모든 배설물을 신중하게 땅에 묻었다. 공개적인 침 뺏는 행위를 자제한 것은, 그 타액이 해롭게 하는 마술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뺏은 침은 반드시 감추어졌다. 심지어는 먹다 남은 것, 옷, 그리고 장신구들도 마술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 미개인들은 식탁에서 먹은 자기 음식을 절대로 남기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적이 이것들을 마술적인 예식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행해졌으며, 그러한 실천 관행들에 대한 위생적인 가치를 인식하였기 때문이 전혀 아니었다.

88:5.2 (971.4) 마술적인 부적들은 매우 다양한 물체들로부터 만들어졌는데: 사람의 살, 호랑이 발톱, 악어 이빨, 유독성 식물의 씨, 뱀의 독액, 그리고 사람의 머리카락 등이 있었다. 죽은 시체의 뼈들은 매우 마술적인 것이었다. 고대의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부적을 매우 강력하게 믿었다. 피 또는 다른 형태의 육체적인 분비물들이 사랑에 대한 마술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었다.

88:5.3 (971.5) 형상들이 마술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초상화들이 그려졌고, 병을 치료하거나 건강할 때, 실제적인 그 사람에게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믿었다. 물건을 살 때, 미신적인 사람들은 파는 사람의 심정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하여 나무 조각을 씹곤 하였다.

88:5.4 (971.6) 검은 소에서 나오는 우유는 매우 마술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다; 검은 고양이도 그러하였다. 막대기 또는 지팡이는 북과 종 그리고 매듭과 함께 마술적인 것이었다. 옛날에는 모든 물체들이 마술적인 부적들이었다. 최근의 또는 보다 높은 문명 세계의 실천 관행들이 탐탁지 않게 여겨졌던 것은, 악한 마술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다. 글을 쓰는 것과 인쇄하는 것 그리고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 오랫동안 그렇게 간주되었다.

88:5.5 (971.7) 원시인은 이름들 특히 하느님들에 대한 이름들은

존중을 받아야만 한다고 믿었다. 그 이름은 실존개체, 육체적인 개인성과는 다른 별개의 어떤 세력으로 간주되었다; 이름은 그 혼과 그림자와 동등하게 존중되었다. 금전을 빌리기 위해 이름이 전당 잡혔으며, 그

빛을 값음으로써 이름을 되찾을 때까지 그는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없었다. 오늘날의 사람은 증서에 자기 이름을 서명하고 있다. 개별존재의 이름은 마술에 있어서 곧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야만인들은 두 가지 이름을 가졌다; 중요한 하나는 평상시에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룩하다고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또는 일상적인 이름—별명—이 사용되었다. 야만인은 낯선 사람에게 결코 자신의 실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어떤 유별난 본성의 체험을 하였을 때에는 자기 이름을 바꾸기도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병을 치료하거나 불행을 멈추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였다. 야만인들은 자기 부족장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직위와 학위를 따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부시먼 종족과 같은 가장 원시적인 부족들 사이에서는, 개별 이름이 실존하지 않는다.

제 6 장. 마술의 실천 관행

88:6.1 (972.1) 마술은 요술 지팡이 사용과 “주술(呪術)” 예식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방법을 통하여 실천되고, 마술사들은 옷을 입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다. 원시적인 마술사들 중에는 여자들의 숫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았다.

마술에 있어서 “주술”은 치료가 아니라 신비를 의미한다. 미개인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치료하지 않았다; 마술에 능통한 사람의 권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주술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20세기의 부두교의 마법적 의사(醫師)들은 전형적인 옛 마술사들이다.

88:6.2 (972.2) 마술에는 대중적인 위상과 사적인 위상이 둘 모두 있다. 주술사나 무당 또는 사제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은 부족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마녀, 요술쟁이, 마법사는 어떤 사람의 적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사적인 마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마술을 시행하였다. 이원적(二元的)인 영 체계,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개념은, 선의(善意)의 마술과 악의(惡意)의 마술에 대한 후대의 믿음들을 기원시켰다. 그리고 종교가 진화되면서, 마술은 자체적인 예배종파의 외부에서 영을 작동시키기 위해 적용된 항목이었으며, 또한 옛날의 귀신에 대한 신앙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88:6.3 (972.3) 영창(詠唱) 예식과 주문(呪文)으로 구성된 말의 조합들은 매우 마술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초기의 어떤

주문들은 마침내 기도문들로 진화하였다. 이윽고, 모방적인 마술이 실천되었고; 기도 문구들이 구성되었다; 마술적인 춤들은 극적인 기도문에 불과하였다. 기도는 희생 제물과 관련하여 점차적으로 마술을 대치시켰다.

88:6.4 (972.4) 몸짓은, 말하기보다 오래되었으므로, 더욱 거룩하고 신비스럽게 여겨졌고, 모조품은 강력한 마술적 힘을 가진 것으로 믿어졌다. 적색 인종들은 때때로 물소 춤을 추곤 하였는데,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물소 역할을 하고 붙잡히는 시늉을 하여 곧 있을 사냥에서의 성공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5월 축제에서의 성(性) 축제는 단순히 마술을 모방하는 것, 식물 세계의 성(性) 열정에 암시적으로 호소하는 것이었다. 인형(人形)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에 의해서 처음으로 마술적인 부적으로 사용되었다.

88:6.5 (972.5) 마술은 결국에는 과학적인 시대의 열매를 맺힌 진화 종교적 나무에서 뺏어 나간 가지였다. 점성술에 대한 믿음은 천문학을 발전시켰고; 현자의 돌에 대한 믿음은 금속을 지배하게 만든 반면, 마술적인 숫자들에 대한 믿음은 수학을 형성케 하였다.

88:6.6 (972.6) 그러나 부적들로 가득한 세상은 모든 개인적인 열망과 독창력을 매우 많이 파괴시켰다. 가외(加外)의 노동과 근면한 노동에 의한 소산물들이 마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땅에서 이웃보다 더 많은 곡식을 얻게 되면, 족장 앞으로 끌려갔고 이러한 초과되는 곡식을 게으른 이웃의 땅에서 꺾어내었다는 판결을 받았다. 야만적인 시대에 있어서는 많이 아는 것이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는데; 마법을 쓰는 사람으로 처형될 가능성이 항상 있었다.

88:6.7 (972.7) 과학은 삶으로부터 투기적인 요소를 점차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현대적인 교육 방법이 실패한다면, 거의 즉시적으로 마술에 대한 원시적인 신앙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미신들은 소위 문명인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 언어는 그 종족이 마술적인 미신 속에 오랫동안 물들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많은 흔적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홀린다는 말, 액운이라는 말, 신들린다는 말, 영을 받았다는 말, 귀신이 잡아간다는 말, 천성적이라는 말, 녀을 잃는다는 말, 벼락 맞는다는 말, 귀신도 나자빠진다는 말들이 있다. 그리고 지능인간

존재들이 아직도 행운과 악한 눈 그리고 점성술을 믿고 있다.

88:6.8 (973.1) 고대의 마술은 현대 과학의 누에고치였으며, 그 시대에는 필수적인 것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무지한 미신적 환상들은 과학의 개념들이 탄생될 때까지 사람들의 원시적인 마음을 선동하였다. 오늘날, 유란시아는 이러한 지적 진화의 황혼기에 놓여 있다. 전(全) 세계의 반쪽은 진리의 빛과 과학적으로 발견된 사실들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반면, 다른 반쪽은 옛날의 미신과 아주 약하게 변장된 마술의 품속에서 번민하고 있다.

88:6.9 (973.2) [네바돈의 찬란한 저녁별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89 편 죄, 희생 제물, 그리고 속죄

89:0.1 (974.1) 원시인은 자기 자신이 영들에게 빛을 진 것으로, 속전(贖錢)을 내어 석방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미개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공의(公義)로서 영들이 훨씬 더 많은 불행을 자기들에게 가져올 것이라고 여겼다. 시간이 흐르자, 이러한 개념은 죄와 구원에 대한 교리로 발전하였다. 혼(魂)은 박탈된

상태—원죄(原罪)—에서 세상으로 나온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 혼은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만 하고; 속죄 염소를 바쳐야만 하였다. 머리를 사냥하는 사람들은, 해골 경배의 예배종파를 실천하는 것에 더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의 대용품, 속죄-인간을 바칠 수 있었다.

89:0.2 (974.2) 미개인들은 영들이 인간의 비참함과 고난 그리고 굴욕을 당하는 장면으로부터 최극의 만족을 얻을 것이라는 개념을 일찍부터 갖고 있었다. 처음에는 사람이 오직 범행에 대한 죄만을 고려하였지만, 나중에는 태만에 대한 죄를 적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그 이후의 전체적인 체계가 이러한 두 관념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라났다. 새로운 이 예식은 희생제물로 위로하는 예식(禮式)의 관습과 관계가 있었다. 원시인은 하느님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한다고 믿었다; 오직 진보된 문명사회의 사람들만이 지속적으로 감정이 안정되고 인자하신 하느님을 인식한다. 속죄는 미래의 축복을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당면한 불행을 물리치기 위한 대비책이었다. 그리고 도피, 축귀(逐鬼), 강압, 그리고 위로의 예식들은 모두 서로에게 융합되었다.

제 1 장. 금기(禁忌)

89:1.1 (974.3) 금기의 엄수는 불운을 피하려는, 어떤 것을 회피함으로써 영(靈) 귀신들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사람의 노력이었다. 금기들은 처음에는 종교적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일찍부터 귀신 또는 영의 허락을 받고자 하였으며,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입법자이자 제도 건축자가 되었다. 금기는 예식적인 표준의 근원이며 원시적인 자아-통제의 선조이다. 그것은 사회적인 규정 중 가장 오래된 형태였고 매우 오랫동안 유일한 것이었다; 여전히 사회적인 규제적 구조의 기본 단위이다.

89:1.2 (974.4) 이러한 금지 조항들이 미개인들의 마음속에서 명령하였던 내용은, 그것들을 강요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그 힘들에 대한 그의 두려움과 정확하게 맞먹었다. 금기들은 처음에는 불행에 대한 우연한 체험 때문에 일어났으며; 나중에는 족장들과 무당들—어떤 영적 귀신에 의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하느님에 의해서 지도를 받는 것으로 생각되는 맹목적 숭배 대상 사람들—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영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원시인의 마음속에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금기를 위반하였을 때 놀라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이러한 극적인 에피소드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사람들의 마음에게 미치는 금기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화되었다.

89:1.3 (974.5) 가장 오래된 금지 조항들 중에는 여자들과 다른 재산들을 도용하는 것에 대한 한계들이 있었다. 종교가 금기의 진화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자, 저주를 받은 물건은 더러운 것으로 간주되었고 나중에는 부정(不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히브리인들의 기록은 정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 거룩한 것들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러한 계통들에 따른 그들의 신앙은 많은 다른 민족들의 신앙과 비교해 본다면 훨씬 덜 복잡하고 훨씬 덜 광범위하였다.

89:1.4 (975.1) 달라마시아와 에덴의 일곱 계명들은, 히브리인들의 열 가지 명령들과 마찬가지로, 한정된 금기들이었고, 대부분의 옛날 금지 조항들처럼 동일한 부정적인 형태로 모든 것들이 표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다 새로운 법전들은 선재하는 수천 가지의 금기들을 대치시키면서 진정으로 해방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후대의 계명들이 순종에 대한 대가로 어떤 것을 명확하게 약속하였다는 점이다.

89:1.5 (975.2) 초기의 음식에 대한 금기들은 주물숭배와 토tem 숭배 속에서 기원되었다. 페니키아 사람들에게는 돼지가 거룩한 존재이고, 힌두교 신자들에게는 소가 거룩한 존재이다. 돼지고기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금기는 히브리 신앙과 이슬람 신앙 속에 영속되었다. 음식에 대한 금기로부터 변형된 한 형태는, 임신한 여인이 어떤 특정한 음식을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되면 태어난 아이도 그 음식을 좋아하게 된다고 믿는 것이었다. 그러한 음식물은 그 아이에게 금기가 되곤 하였다.

89:1.6 (975.3) 빨리 먹는 태도는 금기가 되었고, 그리하여 고대와 현대의 식탁 예절이 기원되었다. 특권계급 체계들과 사회적 차원들은 옛날의 금지 조항들이 남아 있는 흔적이다. 금기들은 사회가 조직되는 데 있어서 매우 효력이 있었지만, 몹시 부담이 되는 것이었다; 부정적인-금지 체계는 유용하고 건설적인 규정들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부하고 시대에 뒤진 그리고 쓸모없는 금기들도 유지하였다.

89:1.7 (975.4)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하고 잡다한 금기들을 제외한다면, 어떤 문명화된 사회도 원시인을 비판할 만한

자격이 없을 것이며, 원시종교에서의 금기를 유지하는 지지가 없었다면 금기는 결코 지탱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사람의 진화에 있어서 근본적인 요소들 대부분은 매우 값이 비쌌는데, 노력과 희생 제물과 자아-부정에 있어서 막대한 대가를 치렀지만, 자아-통제의 이러한 업적들은 그 위에서 사람이 위로 향한 문명의 사다리를 기어 올라가게 하는 실제 발판이었다.

제 2 장. 죄의 개념

89:2.1 (975.5) 운(運)에 대한 두려움과 불행에 대한 공포는, 이러한 재난들을 막는 대비책으로 여겨지는 원시적인 종교를 창안하도록 문자 그대로 사람을 내몰았다. 종교는 마술과 귀신들로부터 진화하여 영들과 주물들의 단계를 거쳐 금기들로 진화하였다. 원시적인 모든 부족들 각각은 금지된 열매의 나무, 글자 그대로는 사과나무이지만, 수천 개의 가지에는 온갖 종류의 금기들이 무겁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금지된 나무는 언제나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89:2.2 (975.6) 원시적인 마음 상태가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을 모두 상상하는 단계까지 진화하게 되고, 금기가 진화하는

종교로부터 진지한 동조를 얻게 되자, 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출현할 수 있는 무대가 모두 준비되었다. 죄에 대한 관념은 계시된 종교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자연적인 죽음이 원시적인 마음에게 논리적으로 받아들여 진 것은 오직 죄에 대한 개념에 의해서였다. 죄는 금기를 어긴 것이었고, 죽음은 죄에 대한 대가였다.

89:2.3 (975.7) 죄는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 의식적인 것이었다; 사고(思考)가 아니라 행동이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이러한 전체 개념은, 이 땅에 있었던 작은 파라다이스 시대와 딜문으로부터 면면히 내려오는 전통들에 의해서 조성되었다. 에덴동산과 아담의 전통 역시 인종들의 여명기에 있었던 한 때의 “황금기”에 대한 몽상의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특별한 창조에서 기원되었다는 것과, 처음에는 완전한 상태에서 출발하였다는 것, 그리고 금기를 범함으로써—죄—나중에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믿는 형태로 후대에 표현되었던 것이다.

89:2.4 (976.1) 금기의 습관적인 위반은 악한 것이 되었고; 원시적인 법은 악한 것을 범죄로 규정하였다; 종교는 그것을 죄라고 하였다. 초기 시대의 부족들 사이에서 금기를 어기는 것은 범죄와 죄가 병합된 의미였다. 공동체가 겪는 재난은 언제나 부족의 죄에 대한 응징으로 간주되었다. 정의로움과 번영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악한 자들이 겉으로 보기에 행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도 괴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금기들을 어긴 사람들을 위한 지옥의 개념을 창안해 내지 않을 수 없었다; 미래의 형벌이 마련된 이 장소들의 숫자는 하나에서부터 다섯까지 다양하였다.

89:2.5 (976.2) 자백과 용서에 대한 관념은 원시적인 종교에서 일찍부터 출현하였다. 사람들은 공개적인 회의 장소에서 자기 죄에 대한 용서를 빌고 그 다음 주에는 다시 죄를 범하곤 하였다. 자백은 단순히 용서를 위한 예식에 불과하였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공개적인 통고, "불결하다, 불결하다!"고 외치는 예식에 불과하였다. 그 다음에는 정결케 하는 예식 순서들이 이어졌다. 고대의 모든 민족들은 이러한 무의미한 실천 관행들을 행하였다.

겉으로 보기에 위생적인 것으로 보이는 옛 부족들의 대부분의 관습들이 대개는 의례적인 것이었다.

제 3 장. 금욕과 굴종

89:3.1 (976.3) 금욕이 종교 진화에 있어서 다음 단계로 발생되었다; 금식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여러 가지 형태의 육체적인 쾌락들, 특별히 성(性)적 자연본성을 삼가는 것이 곧 관습으로 굳어졌다. 금식하는 예식은 고대의 여러 종교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며 실천적으로는 현대의 모든 신학적 생각체계에 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89:3.2 (976.4) 미개인들이 죽은 사람의 재산을 태우고 땅 속에 묻는 낭비적인 실천 관행에서 벗어나던 바로 그 때, 그 종족들의 경제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할 무렵에, 금욕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종교적 교리가 모습을 드러냈으며, 진지한 혼을 가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가난한 상태를 즐기기 시작하였다. 재산은 하나의 영적인 불이익으로 간주되었다. 물질적인 소유의 영적인 위험성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필로와 바울의 시대에 널리 유행되었으며, 유례가 없었던 강력한 영향을 유럽의 철학에 미쳤다.

가난은 육신의 고행에 대한 예식의 일부분이었으며, 불행하게도, 많은 종교들 특히 그리스도교의 문헌들과 가르침들 속에 삽입되었다. 참회는 고행이라는 바보스러운 혼한 예식의 부정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미개인들에게 자아-통제를 가르쳤으며, 그것은 사회적 진화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이었다. 자아-부정과 자아-통제는 초기의 진화 종교로부터 얻은 두 가지의 가장 큰 사회적 소득이었다. 자아-통제는 새로운 삶의 철학을 사람에게 제공하였고; 이기적 충족이라는 분자(分子)를 증강시키려고 항상 애쓰는 대신에 개인적인 욕구들이라는 분모(分母)를 낮춤으로써 삶이라는 분수(分數)를 증가시키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자아-단련에 대한 이러한 옛 관념들은 모든 종류의 육체적인 고문과 매질을 포용하였다. 어머니 예배종파의 사제들이 특히 육체적인 고통의 덕목을 적극적으로 가르쳤는데, 스스로 거세함으로써 본을 보이려고 하였다. 히브리인들과 힌두교인들 그리고 불교도들은 육체적인 굴욕에 대한 이 교리들을 진지하게 신봉하였다.

89:3.5 (976.7)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하느님들의 자아-부정 장부책에서 여분의 신용 한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어떤 감정적인 압박을 당할 때 자아-부정과 자아-고통의 맹세를 하는 것이 한 때의 관습이었다. 이러한 맹세를 할 때 하느님들과의 계약이 성사된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러한 개념에서 그것은 참된 진화적인 발전을 나타내었는데 그 속에서 그 하느님들이 이러한 자아-고문과 육체의 고행에 대한 대가로 확실한 어떤 것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맹세는 부정적인 동시에 긍정적이다. 해롭고도 과격한 특성을 갖는 이 맹세들은 인도의 특정한 집단들 속에서 오늘날 가장 잘 발견되고 있다.

89:3.6 (977.1)

금욕과 굴종을 부르짖는 예배종파가 성(性)적인 충족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성욕을 절제하는 예배종파는 전투에 참여하기 전에 군인들 사이에서 행해졌던 일종의 예식으로서 기원했다; 나중에는 이것이 "성자들"의 실천 관행이 되었다. 이 예배종파는 간음보다는 약간 덜한 하나의 악한 것으로 결혼을 허용하였다. 세계적인 큰 종교들 대부분은 이러한 고대의 예배종파에 의해서 불리한 영향을

받아왔지만, 어떤 것도 그리스도교만큼 뚜렷한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배종파를 신봉하였으며, 그의 개인적인 견해는 그가 그리스도교 신학으로 확정 시켰던 그 가르침들 속에 반영되었다.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든 남자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겠는데, 나처럼 홀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 좋을 것이다.” 바울은 그러한 교훈들이 예수의 복음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그의 고백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허락하는 것이다”라는 그의 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예배종파가 바울로 하여금 여자들을 무시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감스러운 일은, 그의 개인적인 의견들이 하나의 위대한 세계적인 종교의 교훈들 속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 왔다는 사실이다. 만약에 천막을 만드는 자였고 선생이었던 그의 충고가 문자 그대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지켜졌다면, 인간 종족은 갑작스럽게 불명예스러운 종말을 맞이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어떤 종교가 고대의 금욕적인 예배종파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면, 인간 진화의 기본 제도이고 사회적인 참된

기초에 해당하는 가정과 결혼에 항거하는 전쟁이 직접적으로 발생된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신념들이, 다양한 민족들의 여러 종교들 속에서 독신자 사제 제도의 형성을 조장하였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89:3.7 (977.2)} 방종함이 없는 해방, 포식함이 없는 영양 섭취, 방탕함이 없는 즐거움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를 언젠가는 사람이 배워야만 할 것이다. 자아-통제는 극단적인 자아-부정보다 행실을 규제함에 있어서 더 나은 인간적 방침이다. 예수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견해들을 자기 추종자들에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제 4 장. 희생 제물의 기원

^{89:4.1 (977.3)} 종교적인 헌신의 일부분으로서의 희생제물은, 다른 여러 경건한 예식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하고 간단하게 기원되지 않았다. 권세자들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신비적인 현존 앞에서 경건한 경배를 드리며 엎드리려는 경향은, 자기 주인 앞에서 아양을 떠는 개(犬)의 태도에 잘 예시되고 있다. 그것은 경배의 충동으로부터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행동으로 한 계단 상승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시인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에

의해서 자신의 희생제물의 가치를 측정한다. 희생제물에 대한 관념이 처음으로 종교적인 예식에 덧붙여졌을 때에는,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희생제물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최초의 희생제물들은 머리카락을 뽑고, 살을 도려내고, 수족을 절단하고, 이를 뽑아내고, 손가락을 자르는 행위였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희생제물에 대한 이러한 거친 개념들은 자아-포기, 고행, 금식, 궁핍에 대한 예식의 차원으로 향상되었고, 나중에는 슬픔과 고난 그리고 육체적인 고행을 통하여 성화(聖化)된다는 그리스도교 교리로 발전하였다.

89:4.2 (977.4) 종교의 진화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는 희생 제물에 대한 두 가지 개념들이 존재하였는데: 감사를 드리는 태도를 의미하는 감사의 희생 제물과, 보상의 관념이 포용된, 빛을 갚는 희생 제물이 있었다. 나중에는 대속(代贖)의 관념이 발전되었다.

89:4.3 (977.5) 더 후대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희생제물을 제공하면 하느님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생각하였다; 향기로운 냄새로 신(神)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이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의식에 있어서 향을 피우고

다른 여러 가지 미적(美的) 특성들을 첨부시켰는데 그것들은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축제로 발전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정교하고 화려한 것이 되었다.

89:4.4 (978.1) 종교가 진화되자, 화해와 속죄의 희생 제물 의식이 옛날의 도피와 달래기와 쫓아내기 방법들을 대체하였다.

89:4.5 (978.2) 희생 제물에 대한 가장 초기의 관념은 조상의 영들에 의해서 중립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었고; 후대에 이르러서야 죄 값에 대한 관념이 발전되었다. 행성영주 시대와 아담이 머물러 있던 시대의 전통들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점차 제거됨에 따라, 종족의 진화적적인 기원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로부터 점차 사라지게 됨에 따라, 죄와 원죄(原罪)에 대한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우발적이고 개인적인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이 인종적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희생 제물 교리로 진화되었다. 희생 제물로 죄 값을 치르는 것은 알지 못하는 하느님의 분노와 질투심까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총체적인 대비책이었다.

89:4.6 (978.3) 너무나도 많은 민감한 영들과 욕심 많은 하느님들로 둘러싸인 채로, 원시인은 자신의 영적인 빛을

평생토록 갚기 위하여, 사제들과 예식과 희생 제물들 전체를 요구하는 수많은 채권자 신(神)들과 대면하고 있었다. 원죄에 대한 교리, 또는 인종적인 죄는, 모든 사람들이 영의 권세자들에게 심각한 빚을 진 상태에서 삶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89:4.7 (978.4) 재능들과 자질들이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하느님들에게 바칠 때에는, 그것들이 봉헌된 것으로 설명되거나, 신성시되거나, 또는 희생 제물이라고 불려진다. 포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형태의 속죄였으며; 희생 제물은 긍정적인 형태가 되었다. 속죄의 행위에는 산양과 찬미와 아첨하는 말 그리고 심지어는 연회를 베푸는 것까지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현대적인 형태의 신성한 경배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옛날의 속죄 예배종파의 이러한 긍정적인 실천 관행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지금-현재의 경배 형태들은 긍정적인 속죄에 해당하는 이러한 옛날의 희생 제물 기법들을 의례화 시킨 것에 불과하다.

89:4.8 (978.5) 원시인들에게 있어서 동물 희생제물은 현대의 인종들이 부여할 수 있는 의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의미하였다. 이 미개인들은 그 동물들을 자기들의 실재적이고 가까운 친족으로 간주하였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은 자신의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영리함을 보이게 되어, 자신의 일을 돕는 동물들은 제공하지 않게 되었다. 처음에는 길들여진 동물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희생제물을 제공했던 것이다.

89:4.9 (978.6) 이집트의 어떤 통치자가 자신이 희생 제물로 바쳤던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을 때 그것은 빈말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113,433명의 노예, 493,386마리의 가축, 88척의 배, 2,756개의 금으로 된 형상들, 331,702병의 꿀과 기름, 228,380병의 포도주, 680,714마리의 거위, 6,744,428덩어리의 빵, 5,740,352자루의 동전.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는 고생하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심한 세금을 거두어 들였음에 틀림없다.

89:4.10 (978.7) 반(半) 야만적인 이들은 순수하게 궁핍함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들이 희생 제물로 바친 것들 중에서 물질적인 부분을 먹도록 내몰았고, 하느님들은

그것으로부터 떠난 혼을 즐겁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런 관습은 옛날의 성스러운 음식이라는, 현대의 용법에 따르면 성찬식인 교제 봉사라는 구실 아래에서 정당성을 발견했다.

제 5 장. 희생 제물과 식인(食人) 풍습

89:5.1 (978.8) 초기 시대의 식인 풍습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념은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그것은 초기 사회의 사회관례들 중의 일부분이었다. 식인 풍습이 현대의 문명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끔찍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그것은 원시적인 사회의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구조의 일부분이었다. 집단적인 유익을 위하여 식인 풍습의 실천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궁핍함의 압박감에서 발생되었고, 미신과 무지에 노예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었다. 그것은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군사적 관습이었다.

89:5.2 (979.1) 초기의 사람은 사람을 먹었다; 사람의 살을 맛있게 먹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원시적인 하느님들과 영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음식으로 바쳤다. 귀신이 된 영들은 단순히 변형된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은 사람에게 가장 중대한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영들에게도 음식이 가장 중요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였다.

89:5.3 (979.2) 식인 풍습은 진화하는 종족들 사이에서 한때 거의 보편적인 것이었다. 산각들은 모두 식인 풍습을 갖고 있었지만, 안돈-사람들은 기원적으로는 그러한 풍습이 없었고, 낫-사람들과 아담-사람들도 그러하였다; 안드-사람들도 진화하는 종족들과 심하게 섞인 이후까지 그러한 풍습이 없었다.

89:5.4 (979.3) 인간의 고기를 먹는 것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다. 배고픔, 우정, 복수심, 또는 종교 의식을 통하여 시작되었지만, 인간의 고기를 먹는 것은 습관적인 식인 풍습으로 변하였다. 사람을 먹는 것은, 숨어 있는 이유들이 있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음식 부족 때문에 발생되었다. 그러나 에스키모들과 초기의 안돈-사람들은 굶어 죽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식인 풍습이 없었다. 적색 인종, 특별히 중앙 아메리카에 있었던 그들은 사람을 먹었다. 분만을 하면서 잃은 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이를 죽여서 먹는 것이 원시적인 어머니들에게 한때 일반적인

실천 관행이었으며, 퀴즐랜드에서는 아직도 첫 아이를 죽여서 먹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 식인 풍습은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들에 의해 하나의 전쟁을 벌이는 방법, 이웃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일종의 소름끼치는 일로 고의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89:5.5 (979.4) 어떤 식인 풍습은 한 때 우월하였던 혈통들의 퇴화에서 기인되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대개 진화적인 인종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다. 사람을 잡아먹는 일은 자기 적들에 대해서 격렬하고 냉혹한 감정을 체험하였을 때 발생되었다. 사람의 살을 먹는 것이 복수에 대한 엄숙한 예식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의 귀신이 파괴되거나 또는 먹는 사람의 귀신과 융합된다고 믿었다. 요술쟁이들이 인간의 살을 먹음으로써 힘을 얻는다는 믿음이 한 때 널리 퍼져 있었다.

89:5.6 (979.5) 사람을 잡아먹는 어떤 집단들은 오직 자기 부족민만을 먹었는데, 허위적인 영적 근친결혼이 부족의 단결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힘을 충당시킨다는 관념에서 원한을 갚기 위해 적을 잡아먹었다. 동료 부족 또는 친구의

시체를 먹는 것이 그 혼에게 영광스러운 일로 간주된 반면, 그렇게 먹는 것이 적에게는 다만 확실한 형벌이 되었을 뿐이었다. 미개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모순들이 있었다.

89:5.7 (979.6) 어떤 부족들 가운데에서는 나이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 의해서 잡혀 먹히기를 원하였다; 또 어떤 부족들 가운데에서는 가까운 친족들이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는 관습이 있었다; 그들의 시체들은 낯선 사람들에게 팔리거나 또는 그들의 시체들과 교환되었다. 도살하기 위하여 살을 찌게 한 여자와 아이들을 거래하는 일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 질병이나 전쟁에 의해서 인구가 통제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과잉된 숫자를 아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잡아먹었다.

89:5.8 (979.7) 식인 풍습이 점차적으로 사라진 것은 다음과 같은 영향 때문이었다:

89:5.9 (979.8) 1. 그것이 때로는 공동 사회의 예식, 동료 부족에게 사형이 부과된 것에 대해 집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전체가, 공동체가 참여할 때에는 살인죄가 범죄가 되지 않았다. 아시아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식인 풍습은 이와 같이 사형이 집행된 죄수를 먹는 것이었다.

89:5.10 (979.9) 2. 그것이 매우 일찍부터 종교적인 예식이 되었지만, 귀신에 대한 증대되는 두려움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을 줄여주도록 항상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89:5.11 (979.10) 3. 결국에는 시체의 특정 부위 또는 기관들만을 먹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는데, 그 부위들은 혼을 담고 있거나 영의 일부분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피를 마시는 일이 일반화되었고, 육신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을 약품과 섞는 것이 관습이었다.

89:5.12 (980.1) 4. 그것이 남성들에게 제한되었고; 여자들은 사람의 살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었다.

89:5.13 (980.2) 5. 그 다음에는 족장들과 사제들 그리고 무당들에게만 먹을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

89:5.14 (980.3) 6. 그 후에는 그것이 보다 높은 부족들 사이에서 금기가 되었다. 사람을 잡아먹는 것에 대한 금기는 달라마시아에서 기원되었고 서서히 온 세계에 퍼져 나갔다. 낯-사람들은 식인 풍습에 대항하기 위하여

화장하는 것을 권장하였는데, 땅에 묻은 시체들을 다시 파내서 먹는 것이 한 때 일반적인 실천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89:5.15 (980.4) 7. 인간 희생제물은 식인 풍습에 종말을 고하는 것이었다. 인간의 육체는 우월한 사람들, 우두머리들의 음식이었으며, 그것은 결국에는 더욱 우월한 영들을 위해 남겨졌고, 그리하여 인간 희생제물은 식인 풍습을 효과적으로 멈추게 하였으나, 가장 열등한 부족들의 경우에는 예외였다. 인간을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것이 충분히 자리를 잡게 되자, 사람을 잡아먹는 일은 금기가 되었다; 인간의 육체는 오직 하느님들에게만 양식이 되었고; 사람은 예식으로 작은 조각, 성찬만을 먹을 수 있었다.

89:5.16 (980.5) 최종적으로는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목적에 동물을 대용으로 사용하는 일이 일반화되었으며, 더욱 진보가 늦은 부족들 사이에서도 개를 잡아먹음으로써 사람을 먹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개는 최초로 길들여진 동물이었으며 그러한 존재로 그리고 음식으로 가장 존중되었다.

제 6 장. 인간 희생제물의 진화

89:6.1 (980.6) 인간 희생제물은 식인 풍습의 간접적인 결과였을 뿐만 아니라 그 치료제였다. 영을 호위하여 영의 나라에 안전하게 이르게 하려는 노력 역시 사람을 잡아먹는 일을 줄여주었는데, 희생제물로 제공했던 시체를 먹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고 어느 때든지 인간을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실천 관행으로부터 전반적으로 벗어난 종족은 없었으며, 심지어는 안돈-사람들과 낫-사람들 그리고 아담-사람들도 가장 미미한 정도이기는 하지만 식인 풍습이 있었다.

89:6.2 (980.7) 인간 희생제물은 실질적으로 널리 퍼져 있었다; 중국인, 힌두인, 이집트인, 히브리인, 메소포타미아인, 그리스인, 로마인, 그리고 다른 여러 민족들의 종교적인 관습 속에 계속 존재하였고,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발달이 늦은 아프리카인과 오스트레일리아 부족들 사이에서 자행되고 있다. 후대의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이미 식인 풍습에서 벗어난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중앙 그리고 남 아메리카에서는 인간 희생제물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갈대아인들은 평범한 경우에 인간 희생제물을 거부하고 동물로 대치시켰던

최초의 사람들에 속하였다. 약 2,000년 전에 일본에서는 어느 인정 많은 황제가 인간을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대신에 진흙으로 만든 형상을 제공하도록 가르쳤지만, 이러한 희생제물이 북부 유럽에서 소멸된 지 1,000년이 채 못 되었다. 발달이 늦은 어떤 부족들 사이에서는, 인간 희생제물이 지원자들, 일종의 종교적 또는 제례적 자살 행위에 의해 여전히 수행되고 있다. 어떤 무당은 한 때 특정한 부족 중에서 매우 존중을 받는 노인을 희생제물로 제공하도록 명하기도 하였다. 그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순종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렇게 되자 그 노인은 자기 아들을 시켜서 그를 죽이게 하였다; 옛 사람들은 이러한 관습을 실제로 믿었다.

^{89:6.3 (980.8)} 기록된 사건들 중에서 예붓다와 그의 외딸에 대한 히브리 이야기보다 더 비극적이고 애처로운 일은 없을 것인데, 고대의 전통적인 관습과 진보적인 문명의 상반되는 요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슴을 찢는 듯한 갈등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관습대로, 마음씨 좋은 이 사람은 어리석은 맹세를 하였는데, “전쟁의 신”과 흥정을 하여, 적을 물리치게 해 주는 하나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자기가 집으로

돌아갈 때 자기 집에서 첫 번째로 나와 자신을 맞이하는 사람을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예봇다는 자신의 믿을만한 종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 일은 자기 딸에게 벌어졌고 유일한 자식이 뛰어나와 그를 집안으로 맞아들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후대에 이르러서까지도 그리고 문명화되었다고 생각되는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이 아름다운 소녀는 두 달 동안 자기 숙명에 대해 슬피 운 후에,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그리고 부족민들의 동의하에 실재적으로 인간 희생제물로 바쳐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간을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한 모세의 법 앞에서 자행되었다. 그러나 남녀 어른들은 어리석고 쓸데없는 맹세에 중독되어 있었으며, 노인들은 그러한 모든 서약들을 가장 신성한 것이라고 여겼다.

89:6.4 (981.1) 옛날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새 건물이 지어질 때, 한 사람을 죽여서 “기초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것은 귀신이 된 영으로 하여금 그 건물을 감시하고 보호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중국인들은 종(鐘)을 주조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종의 소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관습에 의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녀를 희생제물로 제공하게 되어 있었다; 선택된 그 소녀는 용해된 쇠물 속으로 산채로 던져졌다.

89:6.5 (981.2) 중요한 성벽 속에 노예들을 산채로 집어넣는 것이 여러 집단들의 오랫동안의 실천 관행이었다. 후대에 이르러서 북부 유럽의 부족들은 새로운 건물의 벽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매장시키는 이러한 관습 대신에 지나가는 유령을 가두어 두려고 하였다. 중국인들은 건물을 짓다가 죽은 인부들을 벽 속에 묻었다.

89:6.6 (981.3) 팔레스타인의 어떤 인색한 왕은 여리고 성벽을 지으면서, “자기 첫 번째 아들인 아비람을 그 기초를 위해 제공했고 그 성문들을 위해서는 막내아들인 스굽을 제공했다.” 그러한 후대의 시대에, 그 아버지는 그 성문의 기초석 구멍에 자신의 두 아들들을 산채로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모세는 기초를 위한 이러한 희생제물을 금지하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죽은 직후에 되돌아갔다. 새로운 건물의 주춧돌 속에 장신구들과 기념품들을 보관시키는 20세기의 예식은

기초를 위해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원시적 형태의 흔적이다.

89:6.7 (981.4) 첫 열매를 영들에게 바치는 것이 오랫동안 관습으로 지켜졌다. 그리고 현재는 다소 상징적인 의미가 된 이러한 관례들은 모두 인간을 희생 제물로 바치던 옛 예식들의 유물들이다. 첫-태생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일이 고대의 사람들에게 멀리 퍼져 있었는데, 특히 페니키아인들은 그것을 포기한 최후의 민족이었다. 희생 제물을 바칠 때 "생명에는 생명으로"라고 말하곤 하였다. 이제 너희는 "먼지에서 왔다가 먼지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89:6.8 (981.5)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억지로 희생제물로 제공하려던 장면은, 감수성이 예민한 문명화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심한 감정적 압박감에 짓눌린 아버지들이 첫-태생의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일은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행해진 실천 관행이었다. 대부분의 민족들은 이와 유사한 전설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비범하거나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할 때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쳐야만 한다는 굳건한 믿음이 한 때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제 7 장. 인간 희생제물의 변형

89:7.1 (981.6) 모세는 몸값으로 대치시킴으로써 인간 희생제물을 금지시키려고 하였다. 자기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의 무분별하고 어리석은 맹세로부터 기인되는 최악의 결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조직적인 명세서를 제정하였다. 땅과 재산 그리고 자녀들은 정해진 값으로 다시 살 수 있었는데, 그 속전(贖錢)은 사제들에게 지불하게 되어 있었다. 첫-태생을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일을 멈추게 된 그 집단들은, 이러한 잔학한 행위를 계속하는 덜 진보된 이웃 민족들보다 곧 엄청난 이점을 갖게 되었다. 진보가 늦은 그러한 부족들 대부분은 이렇게 하여 아들들을 잃어버림으로써 뿐만 아니라, 지도권의 계승이 종종 무너짐으로써 힘이 약해졌다.

89:7.2 (982.1) 첫 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관습은 아이를 죽여서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행위로부터 파생되었다. 이러한 일은 그 해의 신성한 축제들 중의

하나와 관련하여 종종 이루어졌으며, 이 의식은 한때 멕시코에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행해졌다.

89:7.3 (982.2) 심지어는 대부분의 집단들이 아이들을 죽이는 종교예식을 멈춘 후에도, 갓난아이를 혼자 있게 하는, 광야에 두거나 또는 배 위에 혼자 태워서 물위에 띄워놓는 관습이 있었다. 만일에 그 아이가 살아남으면 하느님들이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였다고 생각하였으며, 사르곤과 모세와 고레스 그리고 로물루스에 관한 전설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아들들을 신성한 존재로 또는 산 제물로 바치는 실천 관행이 생겨나서, 그들을 자라게 한 뒤에 죽이는 대신 멀리 떠나도록 허용하였다; 이것이 식민지 형성의 기원이 되었다. 로마인들은 자기들의 식민지화를 이룩함에 있어서 이러한 관습을 고수하였다.

89:7.4 (982.3) 원시적인 경배 형태와 성(性) 방종이 독특하게 결합된 대부분의 경우는 인간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과 관련하여 기원되었다. 아주 옛날에는, 만일 여인이 인간을 사냥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성(性)적인 행복을

함으로써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후대에는, 하느님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진 소녀는 자기 몸을 신전에서의 신성한 성(性) 봉사의 삶으로 바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할 때 대속(代贖)의 돈을 벌수도 있었다. 옛 사람들은 그렇게 하여 자기 생명에 대한 몸값을 요구하는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매우 고상한 것으로 여겼다. 이러한 신성시되는 여자들과 동침하는 일은 종교적인 예식이었으며, 더욱이 이러한 전체의 예식은 진부한 성적인 충족을 위한 구실을 제공해 주었다. 이것은 그 여인들과 상대 남성들 양쪽 모두가 스스로를 속이기를 즐기는 미묘한 종류의 자아-기만이였다. 그러한 사회관례는 문명의 진화적 발전을 항상 방해하였으며, 진화하는 종족들의 먼 옛날의 더욱 야만적인 성적 실천 관행들이 그런 식으로 허용되었다.

89:7.5 (982.4) 신전에서의 매춘 행위는 결국에는 남부 유럽과 아시아에도 널리 퍼졌다. 신전 매춘 행위로 번 돈은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신성한 것으로—하느님들에게 바쳐진 최고의 선물—간주되었다. 가장 고상한 부류의 여인들이 신전에서의 매춘 시장에 몰려들었고 자기들이 번 돈을

온갖 종류의 신성한 봉사들과 공공의 선한 사업에 바쳤다. 더욱 고상한 부류의 여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서의 일시적인 성적 봉사를 통해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였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러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더욱 선호하였다.

제 8 장. 대속(代贖)과 계약

89:8.1 (982.5) 희생 제물을 대속(代贖)으로 바치고 자유를 획득하는 일과 신전에서의 매춘 행위는 실체 안에서 인간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의 변형이었다. 그 다음에는 딸들의 모형을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생겨났다. 이 예식은 평생토록 처녀로 지내기로 봉헌하면서 피를 뿌리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그 전에 있었던 신전에서의 매춘 행위에 대한 도덕적 반항이었다. 더욱 근래에서는 성스러운 사원 불을 다루는 봉사에 처녀들이 스스로를 봉헌하기도 하였다.

89:8.2 (982.6) 사람들은 결국에는 신체의 어떤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 인간 전체를 완벽하게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옛날의 관습을 대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육체를 손상시키는 일 역시 가능한 대안으로 여겨졌다. 머리카락,

손톱, 피, 그리고 심지어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희생제물로 바쳐졌다. 후대의 그리고 거의 보편적으로 퍼진 고대의 할레 예식은 일부분을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예배종파에서 발생되었다; 순전히 종교적인 희생제물의 형식이었고, 거기에 관련된 위생학적인 개념은 전혀 없었다. 남자들은 할레를 받았고; 여자들은 귀에 구멍을 내었다.

89:8.3 (983.1) 그 후에는 손가락들을 자르는 대신에 그것들을 묶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머리를 밀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 역시 종교적인 헌신의 형태들이었다. 내시를 만드는 일은 처음에는 인간 희생제물 관념의 변형이었다. 코와 귀를 뚫는 행위는 아직도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신을 새기는 행위는 몸에 상처를 내는 초기의 조잡한 실천 관행이 예술적으로 진화한 것이다.

89:8.4 (983.2) 희생제물의 관습은, 진보적인 가르침의 결과로, 계약의 관념과 결국에는 결합하게 되었다. 마침내는, 하느님들이 사람과 실제적인 계약을 맺게 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것은 종교가 안정을 이루게 되는 주요 단계였다. 법, 계약이 운(運)과 두려움과 미신을 대치하였다.

89:8.5 (983.3)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개념이 신뢰할만한 우주적 통제자의 차원에 도달하기 전에는, 신(神)과 계약을 맺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하였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사람의 초기 관념은 너무나 사람모습의-신(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비교적 신뢰할 만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상태가 되기 전에는 의지할 수 있는 신(神)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없었다.

89:8.6 (983.4) 그러나 하느님들과 계약을 맺는다는 관념이 결국에는 조성되었다. 진화적인 사람은 자신이 감히 자기 하느님들과 협상할 수 있다는 그러한 도덕적 존엄성을 마침내 획득하였다. 그리하여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일이 점차적으로 발전하여, 사람이 하느님과 이성적으로 협상하는 시합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불운을 물리치는 대비책을 위한 새로운 수단을 대표하였으며, 그보다는 오히려 더욱 명확하게 번영을 구입하기 위한 발전적인 기법이였다. 이러한 초기의 희생제물이 하느님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감사 혹은 고마움의 표시로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었다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참된 경배의 표현이 아니었다.

89:8.7 (983.5)

원시적인 형태의 기도는 영들과의 협상, 하느님들과의 논쟁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일종의 물물 교환과 같은 것이었고, 그 속에 포함된 변론과 설득은, 보다 실체적이고 값이 나가는 어떤 것과 바꾸려는 것이었다. 그 종족들의 발전하는 교역(交易)은 매매의 마음을 심어주었고 영리하게 물물 교환 하도록 발달시켰으며; 그 때부터 이 특색들이 사람의 경배 방식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상인(商人)들이 되듯이, 어떤 기도가 다른 기도들보다 더 나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매우 존중되었다. 의로운 사람이란 영들에 대한 모든 계산을 마친, 하느님들에 대한 모든 예식적(禮式的)인 채무를 충분히 면제받은 사람이었다.

89:8.8 (983.6)

초기의 기도는 도저히 경배라 볼 수 없었다; 건강과 재산과 생명을 위하여 거래하고 있는 청원이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기도는 별로 바뀌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책들의 문구를 읽고, 형식적으로 외우고, 또한 종이 위에 적어서 바퀴에 붙여놓거나 나무에 매달아 걸고, 사람이 자신의 숨으로 불어주는 문제를 바람이 해결해주는 나무에 매달았다.

제 9 장. 희생 제물과 성찬

89:9.1 (983.7) 인간 희생제물은, 유란시아의 종교예식들이 진화하는 전체 과정을 통하여, 사람을 잡아먹는 살벌한 일로부터 보다 높고 더욱 상징적인 차원으로 진보해 왔다.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초기의 예식이 후대의 성례 예식을 탄생시켰다. 더욱 후대에 이르러서는 사제가 혼자서 야만적인 희생제물 한 조각을 먹거나 소량의 사람의 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대용품인 동물을 먹곤 하였다. 몸값과 대속(代贖) 그리고 계약에 대한 이러한 초기의 관념들은 후대의 성찬 예배봉사들로 진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의식 진화는 강력하게 사회화 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89:9.2 (984.1) 멕시코 그리고 다른 여러 곳에서는 하느님의 어머니를 섬기는 예배종파와 관련하여, 빵과 포도주로 구성된 성찬식이 결국에는 옛날에 인간을 희생 제물로 바칠 때의 살과 피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히브리인들은 이러한 예식을 유월절 행사의 일부분으로 오랫동안 실천해 왔으며, 후대에 그리스도교적 형태의 성찬이 탄생된 것은 바로 이러한 예식으로부터였다.

89:9.3 (984.2) 고대의 사회적인 형제신분은 피를 마시는 예식에 기초를 두었다; 초기의 유대인 형제우애관계는 희생 제물의 피와 관련되어 있었다. 바울은 "영속하는 계약의 피"에 기초하여 새로운 그리스도교 예배종파를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는 피와 희생 제물에 관한 가르침으로 쓸데없이 그리스도교에 방해 요소를 제공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인간이나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대속(代贖) 받을 수 있다는 교리에는 단호하게 종지부를 찍었다. 그의 신학적인 타협은 계시조차도 진화의 누진적인 통제에 복종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최종적이고도 모든 것을-충만시킨 인간 희생 제물이 되었다; 신성한 재판관이 이제 충분히 그리고 언제까지나 만족된 것이다.

89:9.4 (984.3) 그리하여, 여러 시대가 흐른 뒤에는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예배종파가 성례를 행하는 예배종파로 진화되었다. 현대 종교들의 성례는 인간을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끔찍한 초기 예식과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을 잡아먹는 예식들을 합리적으로 뒤를 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을 위해 피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것은 적어도 비유적이고 상징적이며 신비적인 것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

제 10 장. 죄의 용서

89:10.1 (984.4) 고대의 사람은 희생 제물을 통한 하느님의
은혜만을 인식하였을 뿐이었다. 현대인은 구원에 대한
자아-의식을 획득하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야만 한다.
죄에 대한 인식은 필사자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지만, 그것으로부터의 생존에 대한 모형이 되는 개념은
진부한 것이 되었고 낡은 것이 되었다. 영적인 필요성에
대한 실체는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지적인 진보는 평화를
보장하는 구시대적 방법들을 파괴해 왔고 마음 그리고
혼을 위한 위로를 파괴해 왔다.

89:10.2 (984.5) 죄는 신(神)에 대한 고의적인 불충(不忠)으로
재(再)정의 되어야만 한다. 불충에는 정도가 있는데:
우유부단한 부분적 충성이 있고; 충돌을 일으키는 분열된
충성이 있다; 무관심이라는 사라져 가는 충성이 있고;
신(神)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상(理想)에 헌신하는 죽은
충성이 있다.

89:10.3 (984.6) 범죄에 대한 인식과 느낌은 사회관례의 위반에 대한 의식(意識)이다; 그것이 반드시 죄는 아니다. 신(神)에 대한 의식적(意識的)인 불충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적인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89:10.4 (984.7) 죄책감의 감각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은 인류에게 있어서 초월적 특성의 표시이다. 그것은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잠재적인 위대성과 영원토록-상승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구별시킨다. 그러한 무가치한 감각은, 필사자 마음으로 하여금 도덕적인 숭고함과 조화우주인 통찰력 그리고 영적인 생존이라는 놀라운 차원으로 옮겨주는 신앙적 승리로 신속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인도하게 되는 최초의 충동이다; 그리하여 인간 실존의 모든 의미들은 현세로부터 영원으로 변화되고, 모든 가치들은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신성한 것으로 상승된다.

89:10.5 (984.8) 죄를 고백하는 것은 불충에 대한 용감한 거절이지만, 그러한 불충에 대한 시간-공간 결말들을 결코 완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고백—죄의 본성에 대한 진지한 인식—은 종교적인 성장과 영적인 진보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89:10.6 (985.1) 죄에 대한 신(神)으로부터의 용서는, 고의적인 반항의 결과로 그러한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인간적으로 인식하는 기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충성스러운 관계의 회복이다. 용서는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체와 창조자 사이의 충성 관계의 재-확립에 대한 의식(意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모든 충성스러운 아들들은 파라다이스를 향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늘 행복하고, 봉사를 좋아하며, 항상 진보를 이룩한다.

89:10.7 (985.2) [네바돈의 찬란한 저녁별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90 편 샤머니즘—주술사와 사제

90:0.1 (986.1) 종교적인 관례들은 달래기, 피하기, 쫓아내기, 강압, 회유, 그리고 화해로부터 진화하여 희생제물, 죄 값, 대속에 이르게 되었다. 종교적 예식 기법은 원시적인 예배종파의 형태들로부터 주물숭배를 거쳐 마술과 이적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초물질적 영역에 대한 사람의 개념이 점점 더 복잡하게 됨으로써 예식도 더욱 복잡하게 되자, 그 기술은 주술사들과 무당들 그리고 사제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배를 당하게 되었다.

90:0.2 (986.2)

원시인의 진보적인 개념 중에서 영적인 세계는 결국에는 평범한 필사자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인간들 중에서 오로지 예외적인 사람들만이 하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별한 남자 또는 여자만이 영들에게 말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종교는 새로운 위상, 그것이 점차적으로 매개자가 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경배의 대상물과 종교인 사이에는 언제나 주술사나 무당 또는 사제가 개입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유란시아에 있는 체계화된 종교적 신앙 체계들 대부분은 진화적 발전에 있어서의 이러한 차원을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90:0.3 (986.3)

진화 종교는 알 수 없는 것, 설명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부딪혔을 때 인간의 마음 속으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두려움, 단순하지만 강력한 두려움으로부터 탄생되었다. 종교는 결국에는 우주의 아버지가 우주에 있는 아들들에게 한없는 애정을 가진다는 개념을 깨우치면서 인간의 혼을 통하여 불가항력적으로 휘몰아치는 사랑, 어떤 만능이신 사랑에 대한 깊고도 단순한 실현을 성취한다. 그러나 종교적 진화의 시초와 절정 사이에는, 오랜 동안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중개자, 통역자 그리고 중재자로 서 있다고 자처하는 무당들의 시대가 차지한다.

제 1 장. 최초의 무당—주술사(呪術師)들

90:1.1 (986.4) 무당은 뛰어난 주술사였고, 제례적인 맹목적 숭배 대상이었으며, 진화 종교의 모든 실천 관행들에 대한 중심인물이었다. 많은 집단들에서는 무당이 전쟁터의 우두머리보다도 지위가 높았는데, 그 나라의 교파(敎派)의 발단을 결정지었다. 무당은 때로 사제로 활동하였고 심지어는 사제-왕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후대의 부족들 중에서 어떤 부족들의 경우에는 초기의 무당-주술사(선지자)와 후대에 나타난 무당-사제가 동시에 존재하였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무당의 직책은 세습적인 것이었다.

90:1.2 (986.5) 옛날에는 평범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영에 의해 사로잡힌 탓으로 돌려졌기 때문에, 두드러진 정신병 또는 육체적인 기형이 주술사가 되기 위한 분별된-자격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남자들 중에는 간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히스테리 환자가 많았으며, 이러한 두 가지 유형들은 고대의 신통력뿐만

아니라 영과 악마에 사로잡힌 것을 잘 설명해 준다. 초기 사제들 중에서 꽤 많은 숫자가 그 때부터 편집증 환자라고 불리는 부류에 속하였다.

90:1.3 (987.1) 그들은 사소한 문제들에 대하여 속임수를 실천할 수도 있었던 반면, 무당들 거의 대부분은 자기들이 영에 사로잡혀있음을 사실로 믿었다. 최면상태나 몸이 굳는 발작상태에 스스로 빠져들어 갈 수 있는 여자들은 강력한 여자 무당이 되었다; 나중에는 그러한 여자들이 선지자 또는 영매자들이 되었다. 강경증에 의한 그들의 혼수상태는 대개 죽은 사람의 귀신들과 교통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여자 무당들은 전문적인 무녀이기도 하였다.

90:1.4 (987.2) 그러나 모든 무당들이 자아-기만적인 것은 아니었다; 영리한 사람들과 유능한 요술쟁이들이 많았다. 그 직업이 발달하게 되자, 초보자들에게는 1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 봉사 기간이 요구되었고 주술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자아-부정이 요구되었다. 무당들은 전문적인 형태의 복장을 개발하였고 신비스러운 행위를 꾸며내었다. 그들은 부족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미혹할 수 있는 특정한 육체적인 상태를 유발시키기 위하여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재빠른 손재주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것으로 보였으며, 영리한 사제들이 복화술을 처음으로 이용하였다. 옛 무당들 중에는 최면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어떤 자들은 자신들의 배꼽을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쳐다봄으로서 자기최면에 걸리도록 유도하였다.

90:1.5 (987.3)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요술과 속임수를 이용한 반면,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그들의 명성은 결국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것 같은 상태에 있었다. 무당이 자기 일에 실패하였을 때, 만일에 그럴듯한 구실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위를 잃거나 살해되었다. 그래서 정직한 무당들은 일찍 죽었고; 오직 약삭빠른 연기자들만이 살아남았다.

90:1.6 (987.4) 부족의 관련사들에 대한 배타적인 지도권을 노인들과 강자들의 손으로부터 회수하여 약삭빠른 자들과 영리한 자들 그리고 선견지명이 있는 자들의 손에 맡기게 한 것은 바로 샤머니즘이었다.

제 2 장. 주술 신앙의 실천 관행

90:2.1 (987.5) 영을 불러내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심히 복잡한 과정인데, 지금-현재 교회의 경배에서 옛날 말투를 사용하는 행위와 비슷하다. 인간 종족은 매우 일찍부터 초인간적 존재의 도움, 계시를 추구하였다; 사람들은 무당이 실재적으로 그러한 계시들을 받아들인다고 믿었다. 무당들이 자신의 일에 암시 방법이 갖는 큰 힘을 활용하였지만 그것은 거의 변함없이 부정적인 암시였으며; 아주 최근에 이르러서야 긍정적인 암시 기법이 활용되게 되었다. 무당들의 전문 직업이 발달하던 초기에 그들은 비를 내리게 하고 병을 고치며 범죄자를 찾아내는 그러한 분야로 전문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질병을 고치는 일은 무속적인 마력사의 주요 기능이 아니었다; 오히려 삶 속에서의 위험한 상황들을 알아내고 통제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었다.

90:2.2 (987.6)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세속적이었던 고대의 흑(黑)마술은, 그것이 사제들이나 선지자들 또는 무당들이나 묘약 제조자들에 의해서 실천될 때에는 백(白)마술로 여겨졌다. 흑(黑)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은 마술사, 요술쟁이, 마법사, 마녀, 요술사, 강신술사, 마술사,

그리고 주술사로 불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초자연적인 존재와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러한 모든 현상들은 마술 또는 주술로 분류되었다.

90:2.3 (987.7) 옛날의 비정상적이고 알려지지 않은 영들에 의해서 행해진다고 생각하는요술은 마술을 포용하였다; 주술(呪術)은 부족의 알려진 하느님들과 정상적인 영들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여겨지는 기적들을 행해야만 했다. 후대에 이르러서 요술쟁이는 악마와 연관되었고, 이로 인하여 최근의 상당히 많은 종교적 편협의 무대가 그렇게 마련된 것이다. 많은 원시적 부족들에게 있어서 요술은 일종의 종교였다.

90:2.4 (987.8) 무당들은 운(運)의 역할을 영들의 뜻에 대한 계시적인 것으로 굳게 믿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제비를 뽑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제비를 뽑는 성향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운수를 바라는 많은 경기들에서 뿐만 아니라 “숫자를 세어-뽑아내기”는 유명한 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 때는 일단 뽑힌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했는데; 오늘날에는 아이들의 장난

속에서만이 그렇게 된다. 원시인에게 심각한 일이었던 그러한 것이 현대 아이들의 기분전환으로 생존하고 있다.

90:2.5 (988.1) 주술사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거든 더욱 분발해서 일해야 한다.”는 식으로 표적들과 징조들을 속에 커다란 신뢰감을 불어넣었다. 인류 역사의 매우 초기 시대부터 무당들은 별들에게 관심을 쏟았다. 원시적인 점성술은 범세계적인 신념 그리고 실천 관행이었다; 꿈 해몽 역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 모든 것에 바로 뒤이어서, 죽은 자들의 영과 교통을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경증적인 그 여자 무당들이 출현하였다.

90:2.6 (988.2) 비를 만드는 이, 날씨 무당들은, 아주 옛날에 기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대를 거쳐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심각한 가뭄은 옛 농부들에게 죽음이나 다름없었다; 날씨를 통제하는 일은 옛날에 있었던 대부분의 마술의 목적이었다. 문명화된 사람들도 여전히 날씨를 평범한 대화의 주제로 삼고 있다. 옛 사람들은 모두 무당이 비를 만드는 자로서의 힘을 지닌다고 믿었지만, 그가 실패할 때 만약에 그 실패에 대한

그럴듯한 핑계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를 죽이는 것이 관례였다.

90:2.7 (988.3) 시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점성가들을 추방시켰지만, 그들이 늘 다시 돌아온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추방될 수가 없었으며, 심지어는 그리스도 이후 16세기 이후까지도 서방 교회와 국가 지도자들이 점성술을 신봉하였다. 행운의 별이나 불운의 별의 지배아래에서 사람이 태어나게 된다는 믿음과; 하늘에 있는 몸체와 나란히 놓여 있는 배열이 이 세상의 다양한 모험들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믿음이, 수많은 지적 대중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아직도 점쟁이들은 귀가 얇은 사람들을 단골로 삼고 있다.

90:2.8 (988.4) 그리스인들은 신탁의 충고에 대한 효능을 믿었고, 중국인들은 마귀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으로 마술을 이용하였으며, 인도에서는 주술이 번성하였고, 중앙아시아에서는 아직도 주술이 지속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포기되어지는 실천 관행이 된 것은 겨우 최근의 일이다.

90:2.9 (988.5)

때때로, 선지자들과 선생들이 출현하여 샤머니즘을 비난하고 그 가면을 벗기려고 하였다. 심지어는 사라져 가고 있는 적색 인종 사이에서도 그러한 선지자들이 지난 수백 년 사이에 나타났었는데, 쇼니족 사람 텐스콰타와는 1,808년에 태양의 일식을 예언하였고 백인들의 악행을 비난하였다. 오랜 기간의 진화 역사 속에서 여러 부족들과 종족들 속에서 많은 참된 선생들이 출현하였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 일반적인 교육을 반대하고 과학적인 진보를 훼방하려고 애쓰는 각 시대의 무당들 또는 사제들에게 대항할 것이다.

90:2.10 (988.6)

옛날의 무당들은, 여러 가지 수단으로 그리고 사악한 방법에 의해서, 하느님의 대변자와 섭리의 보호관리자로 자신의 명성을 구축하였다. 그들은 새로 태어나는 아기에게 물을 뿌리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그들은 모든 장례 예식을 주관하였고, 죽은 자들이 영의 나라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만든다고 여겨지는 안내문을 공표 하였다.

90:2.11 (988.7) 무속적인 사제들과 주술사들은, 표면적으로는 영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요금들을 부과함으로써 매우 큰 부자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무당이 자기 부족의 물질적인 재산 전체를 실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부자가 죽게 되면, 그의 재산을 어떤 공공 단체 또는 자선 단체와 무당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이 관례였다. 이러한 관습은 티베트에 있는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전체 남자들의 절반이 비생산적인 이러한 부류에 속하여 있다.

90:2.12 (989.1) 무당들은 옷을 잘 입었고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으며; 최초의 귀족에 해당되었는데, 부족의 모든 제약 조건으로부터 제외되었다. 그들은 매우 열등한 마음과 도덕을 소유한 경우가 매우 흔하였다. 그들은 자기 경쟁자들을 마녀 또는 요술쟁이로 몰아서 탄압하였고, 우두머리들이나 왕들을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과 힘을 갖는 위치에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매우 흔히 있었다.

90:2.13 (989.2) 원시인은 무당을 피할 수 없는 악한 존재로 간주하였다; 그를 두려워하였지만 좋아하지는 않았다. 옛 사람들은 지식을 높이 평가하였고; 지혜를 명예롭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무당은 대개 사기꾼이었지만, 샤머니즘에 대한 숭배는 그 종족의 진화에 있어서 지혜를 높이 평가하였음을 잘 나타내 준다.

제 3 장. 질병과 죽음에 대한 무속적 견해

90:3.1 (989.3) 고대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물질적인 환경이 귀신들의 변덕스러운 마음과 영들의 호감을 사는 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의 종교가 물질적인 관련사들과 매우 배타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물질적인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대처한다; 마음의 지적인 조종에 따라 물질이 반응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원시인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권역의 에너지들과 생명을 개선하고 심지어는 통제할 수 있게 되기를 열망하였지만; 조화우주에 대한 제한된 이해 때문에, 귀신들과 영들 그리고 하느님들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생명과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에 관여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고, 이러한 초인간적 대리자들의 호감과 도움을 얻기 위하여 논리적인 방향으로 자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90:3.2 (989.4)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고대의 예배종파들 속에 있는 설명할 수 없고 불합리한 것들 대부분을 납득할 수 있게 된다. 그 예배종파의 예식들은 원시인 자신이 자기가 서 있는 물질세계를 통제해 보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그가 하였던 노력들 대부분은 건강을 보장하고 삶을 연장시키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다. 모든 질병들과 죽음 자체가 근본적으로 영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무당들이 주술사와 사제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내과 의사와 외과 의사의 일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90:3.3 (989.5) 원시적인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이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사실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장애를 받을 수도 있다.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질병과 죽음을 바라볼 때 이것들이 찾아온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며, 그들이 납득하는 바에 따라서 무당들과 과학자들은 불행의 원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론들을 제시해 왔다:

90:3.4 (989.6) 1. 귀신—직접적인 영의 영향들. 질병과 죽음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진보를 이룩한 가장 오래된 가정(假定)은 영들이 혼으로 하여금 육체로부터 빠져 나오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만약에 그 혼이

다시 돌아가지 못하면 그 결과로 죽게 된다는 것이었다. 고대의 사람들은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귀신들의 심술궂은 행동을 너무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병든 개별존재를 음식과 물도 주지 않은 채로 버려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신념들의 근거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병든 개별존재들을 효과적으로 고립시켰고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았다.

90:3.5 (989.7) 2. 폭력—명백한 원인들. 어떤 재난과 죽음에 대한 원인은 너무나 쉽게 정체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귀신의 활동으로 여겨지는 범주에서 일찍부터 제외되었다. 전쟁과 동물과의 격투 그리고 다른 어떤 용이하게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리자에 의해 죽거나 다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치료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심지어 “자연적” 원인성으로 발생한 상처가 감염된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믿음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눈에 보이는 당연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적인 귀신들이 여전히 그 질병과 죽음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였다.

90:3.6 (990.1)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 폭력에 의하지 않고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원시 민족들이 아프리카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들의 주술사들이 죄가 있는 상대방들을 지적한다. 만약에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죽게 되면, 그 아이는 즉시 목을 졸라 죽였다—생명에는 생명으로.

90:3.7 (990.2) 3. 마법—적들에서의 영향. 대부분의 질병은 요술에 걸려서, 흉안(凶眼)과 마법적인 활쏘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 때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 실제로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은 지금도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질병이나 죽음이 발생한 경우에 고대의 사람들은 형식적인 참관인을 배석시키고 시신을 해부하여 질병의 원인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자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체에게 마술이 걸린 것으로 보고 그 대신에 마녀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 자리에 배석한 이러한 고대의 검시관들이, 죽게 된 마녀의 생명을 많이 살려주었다. 어떤 종족들 중에는 부족민이 자기 자신의 마술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고 믿었으며, 그런 경우에는 아무도 고발을 당하지 않았다.

90:3.8 (990.3)

4. 죄—금기를 어긴 것에 대한 형벌. 비교적 근래에 이르러서는 질병이 개인적인 또는 종족 전체의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믿어져 왔다. 이러한 수준의 진화 단계를 거치고 있는 민족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는 견해는, 누군가가 금기를 범하지 않는 한 아무도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질병과 고통을 “그들 속에 계시는 전능자의 화살들”로 간주하는 태도는 전형적인 그러한 신념들의 모습이다. 중국인들과 메소포타미아인 들은 질병을 악한 마귀가 활동한 결과로 간주한 반면, 갈대아인들은 별들이 고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질병을 신성한 진노의 결과로 보는 이러한 견해는 문명화 된 것으로 평판이 나 있는 대부분의 유란시아인 집단들 속에서 여전히 우세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90:3.9 (990.4)

5. 자연적 원인 작용. 인류는 에너지와 물질 그리고 생명에 대한 물리적 권역 속에 있는 상호관계의 물질적인 비밀들을 깨우치기까지 매우 오랜 세월이 걸렸다. 아담아들의 가르침을 전통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고대의 그리스인들은, 질병이 자연적인 원인의 결과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민족들 중의 하나였다. 과학적인 시대의 발견이 질병과 죽음에 대한 케케묵은 견해들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파괴하고 있다. 열병은 초자연적인 부조화(不調和)의 범주에서 제외된 최초의 인간 질병들 중의 하나였으며, 인간 마음을 그토록 오랫동안 가두어 놓았던 무지의 족쇄를 과학시대가 점진적으로 파괴해 왔다. 노화 현상과 전염병에 대해 납득함으로써, 인간의 고통과 필자사의 고난을 주는 개인적인 가해자로 간주되는 귀신, 영, 그리고 하느님들에 대한 사람의 두려움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90:3.10 (990.5) 진화는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것은 하느님 개념의 발판이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과 알려지지 않은 존재들에 대한 미신적인 공포심을 사람에게 불어넣는다. 그리고 신(神)에 대한 발전된 이해의 탄생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그 진화 기법이, 계시의 조화-협동적인 활동을 통해, 앞으로 그 발판을 냉혹하게 제거시키게 될, 지금까지 그 목적을 위해 이바지 해왔던 그러한 사고력이 반드시 활동하도록 만들 것이다.

제 4 장. 무당들이 장악한 약품

90:4.1 (990.6) 고대 사람들의 생애 전체가 질병 예방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의 종교는 결코 적지 않은 부분이 질병의 예방을 위한 기법이였다. 그리고 그들의 이론에서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들은 그것들이 효과가 나타나도록 쏟아붓는 데에 전심을 기울였다; 사람들은 치료에서의 그들의 방법에 억제되지않을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 자체로, 강력한 치료제였다

90:4.2 (991.1) 이들 고대 무당들 가운데 어떤 자의 어리석은 사명활동 아래에서 낫기 위하여 요구되었던 신앙은, 결국에는 질병에 대한 비과학적 치료에 종사하는, 그의 후대 계승자들 중의 어떤 자의 손에서 치유를 체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그러한 것과, 물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90:4.3 (991.2) 더욱 원시적인 부족들은 병에 걸리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였으며, 조심스러운 면으로 보면 그 환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격리되어 왔고, 어리석게 본다면 경시되었다. 무술(巫術)의 진화로 말미암아, 질병 치료에 동의한 사제들과 주술사들이 탄생되었을 때, 인도주의적으로는 큰 진보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부터는 질병을 일으킨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 무당이 소리치는

일을 도와주려고 환자의 방에 전체 씨족들이 모여드는 관습이 생겨나게 되었다. 여자가 병을 진단하는 무당이 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니었으며, 반면에 남자가 관리-운영을 담당하였다. 질병에 대해 진단을 내리는 일반적인 방법은 동물의 내장을 검사하는 것이었다.

90:4.4 (991.3) 질병의 치료에는 노래 부르기, 소리치기, 손을 얹기, 환자에게 숨을 내뿜기,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기법들이 동원되었다. 후대에 이르러서는 신전에서 잠을 자는 동안 치유가 일어난다고 생각되어, 신전에서 잠을 자는 휴식이 널리 확산 되었다. 주술사들은 신전에서의 수면과 관련하여 결국에는 실재적인 외과 수술을 꾀했다; 처음에 했던 수술 중에는, 두통 영이 달아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두개골에 천공을 만드는 그런 것이었다. 남자 무당들은 종기와 농양의 환부를 절개하여 치료하는 방법과, 골절상과 좌상을 치료하는 것을 배웠다; 여자 무당들은 산파술에 정통하게 되었다.

90:4.5 (991.4) 병균이 들어가거나 손상을 입은 신체 부위에 마술적인 어떤 것을 문지르고, 부적을 멀리 던지며, 체험적으로 치료법이라 간주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만약에 누구든지 버려진 부적을 우연히 만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즉시로 병균이 들어가거나 손상을 입게 된다고 믿었다. 약초 또는 다른 실제적인 약품들이 소개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안마하는 방법은, 주문을 외우는 것과 관련하여 개발되었는데 문지르는 방법으로 영을 몸 밖으로 내보내려는 것이었고, 그 전에는 현대인들이 바르는 약을 문질러서 스며들게 하는 것처럼 약품을 문질러서 침투되게 하려고 시도하였다. 병에 걸린 부위에서 피를 짜거나 빨아들이는 방법은, 피를 흘리는 방법과 함께, 질병의 원인이 되는 영을 제거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90:4.6 (991.5) 물은 강력한 주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질병의 치료제로 이용되었다. 영에 의해 발생한 병은 고문하는 방법으로 낫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오랫동안 계속 유지되었다. 증기를 쪼는 목욕 방법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며; 천연적인 온천이 곧 원시적인 건강 수단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옛날 사람들은 열에 의해서 통증이 경감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햇빛, 싱싱한 동물 내장, 뜨겁게 달군 진흙, 그리고 뜨거운 돌맹이들이

이용되었고,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아직도 활용되고 있다. 영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울동이 실천되었다; 단조로운 북소리는 전 인류에게 공통적인 것이었다.

90:4.7 (991.6) 어떤 민족은 영들과 동물들의 중간인 사악한 음모자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개념으로 말미암아, 동물이 원인이 되는 모든 질병들에 대해서는 효험이 있는 식물 치료제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적색 인종들은 만병통치약에 해당하는 식물 요법을 특별히 신봉하였다; 그 식물을 뽑을 때에는 뿌리가 있었던 남겨진 구멍에 피 한 방울을 항상 떨어뜨렸다.

90:4.8 (991.7) 음식과 식이요법 그리고 반대되는 자극제들이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확실히 신비한 것으로 여겨지는 인간 분비물들이 매우 효험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래서 처음에는 피와 오줌이 약품으로 활용되었고 뿌리들과 여러 가지 소금들로 곧 증강되었다. 무당들은 질병을 일으키는 영들이 불결한 냄새와 고약한 맛의 약품에 의해서 몸 밖으로 쫓겨날 수 있다고 믿었다. 몸을 씻는 행위는 매우 일찍부터 틀에 박힌

치료법이 되었으며, 야생 코코아와 키니네의 가치는 약학에서 가장 오래된 발견에 속하였다.

90:4.9 (992.1) 그리스인들은 병을 치료하는 참된 합리적 방법들을 진화시킨 첫 번째 사람들이다. 그리스인들과 이집트인들은 모두 유프라테스 계곡 사람들로부터 의학 지식을 받아들였다.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를 치료하는 매우 초기의 약품이었다; 비버 기름과 아편은 수메르인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이러한 고대의 효력 있는 은밀한 치료제들 대부분은 널리 알려지게 되자 그 힘을 잃어버렸는데; 은밀함은 미신과 기만행위가 효과적으로 실천되는 데 있어서 항상 근본적인 요소가 되어 왔다. 오직 사실들과 진리만이 이해에서의 총명한 빛을 만나 사귀고, 과학적 연구에서의 조명과 깨우침 안에서 기쁨을 향유한다.

제 5 장. 사제(司祭)와 종교예식

90:5.1 (992.2) 종교 예식의 정수(精髓)는 그것을 이상적(理想的)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미개인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정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하였다. 그 의식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에만, 그것이

영들에게 강제적인 힘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만약에 그 의식에 잘못이 있게 되면, 하느님들의 노여움과 분노를 일으킬 뿐이었다. 그 결과로, 사람의 더디게 진화하는 마음은, 의식을 치루는 기법이 효력에서 결정적인 요소라고 이해하였기 때문에, 초기의 무당들이 조만간 의식에서의 빈틈없는 실천을 지도하도록 훈련된 사제(司祭)신분으로 진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수만 년 동안 끊임없는 종교 예식들이 공동체를 휘방하고 문명의 발전에 화를 미쳤는데, 삶에 있어서의 모든 행동, 인종적인 모든 일들 위에 건디기 힘든 짐을 부과해 왔다.

90:5.2 (992.3) 종교예식은 신성하게 하는 관습의 기법이었다; 신화들을 만들고 영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습들과 종교적인 관습들의 보존에 기여하였다. 다시 말해서, 종교예식 그 자체는 신화들에 의해서 보호되어 왔다. 종교예식들은 처음에는 공동체적인 경우가 많았지만, 나중에는 경제적인 것이 되었고 마침내는 종교적 예식의 신성함과 존엄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종교예식은 기도와 춤과 연극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그

실천에서 개인적이거나 집단적—또는 그 두 가지 모두—일 수 있다.

90:5.3 (992.4) 여러 가지 단어들이 종교예식의 한 부분이 되었는데, 아멘과 셀라와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맹세하는 습관,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는, 그 전에 거룩한 이름들을 예식으로 반복하던 행위가 타락된 대표적인 것이었다. 거룩한 성지를 순례 여행하는 행위는 매우 오래된 종교예식이다. 그 다음에는 종교예식이 정화와 깨끗이 씻음과 성화(聖化)라는 정교한 예식들로 발전하였다. 원시적인 부족의 비밀 공동체에 가입하는 예식은 실체 안에서 하나의 종교적인 의례였다. 옛 시대의 신비적인 예배종파들의 경배 방법은 축적된 여러 가지 종교예식들을 길게 이어 놓은 것에 불과하였다. 종교예식은 결국 현대적 유형의 공동체적 예식과 종교적 경배, 기도가 포함된 예배봉사, 노래, 교독(交讀),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의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영적 헌신 행위들로 발전하였다.

90:5.4 (992.5) 사제 계급은 무당으로부터 진화하여, 예언자, 점쟁이, 가수, 무인(舞人), 날씨를 만드는 자, 종교적인

유품들을 지키는 자, 신전 보호관리자, 그리고 사건들을 미리 예견하는 자의 단계들을 거쳐, 종교적인 경배를 실재적으로 인도하는 지위에 이르게 되었다. 그 직책은 결국에는 세습적인 것이 되었고; 계속 이어지는 사제 특권계급이 탄생되었다.

90:5.5 (992.6) 종교가 진화됨에 따라, 사제들은 자신들의 타고난 재능들 또는 특별히 선호하는 것에 맞추어 전문화되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가수가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웅변가—설교가—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종교가 제도화되자, 이 사제들은 자기들이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90:5.6 (992.7) 사제들은 옛날 언어로 종교적인 의식을 수행함으로써 그리고 마술적인 잡다한 골동품들을 이용하여 평범한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놀라게 함으로써 경배자들을 미혹하여 자기 자신의 경건성과 권위를 증진시키려고 항상 애를 썼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심각한 위험성은, 그 종교예식이 종교를 대신하게 되려는 경향이다.

90:5.7 (993.1) 과학적인 발전을 지체시키고 영적인 진보를 방해하기 위하여 사제 계급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문명을 안정화시키고 특정한 종류의 문화들을 증진시키는 일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의 사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경배 예식에서의 지도자 기능을 그만두었고, 관심을 신학—하느님에 대해 정의(定意)를 내리려는 노력—에 기울이고 있다.

90:5.8 (993.2) 사제들이 여러 인종들의 목에 멍돌을 매달아 온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참된 종교적 영도자들은 보다 높고 향상된 실체들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데에서 말할 수 없이 귀중한 존재가 되어 왔다.

90:5.9 (993.3)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91 편 기도의 진화

91:0.1 (994.1) 종교에서의 하나의 매개자로서, 기도(祈禱)는, 그 전에 있었던 비종교적인 독백(獨白)과 대화의 표현들로부터 진화되었다. 원시인이 자아-의식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로 발생하는 필연적인 다른-

의식, 사회적인 반응과 하느님 인식(認識)의 이원적(二元的)인 잠재가 발생되었다.

91:0.2 (994.2) 최초의 기도 형태들은 신(神)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표현들은 너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면서 “나의 성공을 빌어달라”고 친구에게 말하는 것과 아주 흡사하였다. 원시인은 마술에 노예가 된 상태였으며; 행운과 불운은 삶에 있어서 모든 관련사들과 결부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이러한 행운의 요청이 독백 형식으로 —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 행해졌다. 그 다음에는, 행운을 믿는 이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과 가족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이윽고 전체 씨족 또는 부족을 참여시키는 어떤 형태의 예식이 행해지게 되었다.

91:0.3 (994.3) 귀신들과 영들에 대한 개념들이 발전하게 되자, 이러한 청원들은 그 요청에 있어서 초인간적인 것이 되었으며, 하느님들에 대한 의식(意識)과 함께, 그러한 표현들은 참된 기도의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것에 대한 한 예로, 오스트랄리아의 어떤 부족들 사이에서는

원시적 종교 형태의 기도가 영들과 초인간적 개인성들에 대한 믿음보다도 먼저 생겼다.

91:0.4 (994.4) 인도에 있는 토다 부족은 특별한 대상이 없이 기도하는 실천 관행이 지금도 있는데, 종교적인 의식(意識)이 생기기 전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오직, 토다 부족 사이의 경우에서만은, 이것이 그들의 퇴보하는 종교가 이러한 원시적인 차원으로의 역행(逆行)을 보여준다. 토다 부족 중에서 낙농업(酪農業)에 종사하는 사제들의 지금-현재의 의식(儀式) 행사들은 종교적인 예식과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들 미(未)개인적인 기도들이 사회적 가치나 도덕적 가치 또는 영적 가치의 보존 또는 증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91:0.5 (994.5) 종교가 형성되기 이전의 기도는, 멜라네시아인들의 마나 실천 관행, 아프리카 피그미 종족의 우다 신앙 그리고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마니토우 미신의 일부였다. 아프리카의 바간다 부족들은 최근에 이르러서야 기도에서의 마나 차원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러한 초기 진화의 혼란 상태 속에서 사람들은 하느님들

— 지역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 에게, 주물들, 부적(符籙)들, 귀신들, 통치자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였다.

제 1 장. 원시적인 기도

91:1.1 (994.6) 초기의 진화적 종교의 기능은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 가는 사회적, 도덕적, 영적 가치들을 보존하고 증강시키는 것이었다. 종교의 이러한 임무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의식적(意識的)으로 관찰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기도의 역할에 의해서 달성되었다. 보다 높은 가치들의 이러한 보존을 확실하게 하려는 (실재화하려는) 모든 집단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실천 관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기도의 보호를 위하여, 모든 거룩한 날들은 단순한 휴일의 지위로 재빨리 전환되었다.

91:1.2 (995.1) 그 주요 부분이 기도인 종교 그리고 그 매개자들은,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 집단적인 동의를 얻은 그러한 가치들과만 결합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인이 보다 낮은 차원의 자기 감정들을 만족시키거나 순전히 이기적인 야망을 달성하려고 시도할 때, 그는 종교의

위로와 기도의 협력을 잃어버린다. 만약에 그 개인이 반(反) 사회적인 어떤 것을 이룩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는 비종교적인 마술의 협력을 추구하고 요술쟁이들에게 의지하고 그리하여 기도의 도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는 매우 옛날부터 사회적인 진화와 도덕적인 진보 그리고 영적인 달성을 강력하게 증진시키는 것이 되었다.

91:1.3 (995.2) 그러나 원시적인 마음은 논리적이지도 않았고 일관성도 없었다. 옛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들이 기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단순한 마음을 소유한 그 사람들은 음식과 주거지와 비와 오락 그리고 다른 물질들이 사회적인 행복을 증진시켜준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기도를 오용(誤用)하는 요인이 되었던 반면,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활동들에 의해서 이러한 물질적 목표들을 실현하려는 노력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하였다. 기도의 그러한 타락은, 사람의 영적인 가치들을 저하시키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관습들을 직접적으로 향상시켰다.

91:1.4 (995.3) 원시적인 유형의 마음을 소유한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서 기도는 독백(獨白)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곧 대화 형체가 되었고 집단적인 경배의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기도는, 마술(魔術) 전에 있었던 원시적인 종교의 주문(呪文)이 진화하여, 인간 마음이 사회적인 가치들을 증진시키고 도덕적 이상(理想)들을 증강시킬 수 있는 인정 많은 힘들 또는 존재들의 실체를 인식하는 차원에 도달하게 되었음을 예시(豫示)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영향들이 초인간적이라는 사실과 자아-의식적 인간과 그의 동료 필사자들의 자기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예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사명활동 매개자가 개인적인 것으로 가시화(可視化)되기 전에는 참된 기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91:1.5 (995.4) 기도는 정령(精靈) 숭배와 거의 연관이 없지만, 그러한 신념들은 창발하는 종교적 정서들에 따라서 존재할 수도 있다. 종교와 정령 숭배가 전혀 다른 기원을 갖는 경우가 많다.

91:1.6 (995.5) 원시적인 두려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필사자들에게는, 모든 기도가 죄에 대한 병적(病的)인

감각, 실제적이든지 공상에 의한 것이든지, 죄책감에 대한 근거 없는 신념으로 발전될 수 있는 실제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의식에 대하여 위험할 정도로 낙심하게 될 만큼 충분한 시간을 기도에 바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도에서의 왜곡과 오용에 수반되는 위험들은 무지, 미신, 결정화, 생명력 상실, 물질주의, 그리고 열광주의 속에 존재하고 있다.

제 2 장. 진화하는 기도

91:2.1 (995.6) 처음에 하였던 기도들은 소원하는 것들을 말로 표현한 것, 진지한 욕망들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기도는 영적인 협동을 달성하는 기법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에는, 모든 보람있는 가치들의 보존에 있어서 조력(助力)하는 종교의 보다 높은 기능을 달성하였다.

91:2.2 (995.7) 기도와 마술 두 가지는 모두 유란시아의 환경에 순응하는 사람의 반응의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화된 관계를 제외한다면, 공통점이 거의 없다.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기에 의한 긍정적인 활동을 가리킨다;

그것은 항상 정신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영적이기도 하다. 마술은 대개 조종자, 마술을 행하는 사람의 자기와 상관없이 실체를 조종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그것들의 독립적인 기원(起源)에도 불구하고, 마술과 기도는 후대의 발전단계에 있어서 서로 관련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마술은 습관적인 방식으로부터 의식(儀式)과 주문(呪文)의 단계를 거쳐 참된 기도의 입구까지 이르는 목표 향상에 의해 발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때로는 기도가 너무나 물질적인 것이 되어, 유란시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려고 피하는 사이비 마술 기법으로 타락하였다.

91:2.3 (996.1) 기도가 하느님들을 움직이게 할 수 없음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자, 그것은 좀 더 탄원적(歎願的)인,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실체 안에서 가장 참된 기도는 사람과 그의 조물주 사이의 교제이다.

91:2.4 (996.2) 어떤 종교의 경우든지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개념의 출현은 참된 기도의 더욱 높은 효능보다 훨씬 못한 것이기 마련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신들의 헌신된 의지들을 제공하는 대신에 물질적인 소유물들을 제공하려고 한다.

91:2.5 (996.3) 종교가 개인적 하느님을 잃어버리면, 그러한 기도는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차원으로 전환된다. 종교에서 하느님에 대한 가장 높은 개념이 범신적 이상주의와 같이 미(未)개인적 신(神)의 개념일 때에는, 특정 형태의 신비적 교제의 바탕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항상 개인적인 그리고 우월한 존재와 사람의 교제를 드러내는, 참된 기도의 잠재력에 치명적임에 틀림없다.

91:2.6 (996.4) 인종 진화의 초기 시대 동안, 그리고 심지어는 현재까지도, 보통 수준의 필사자가 겪는 매일 매일의 체험 속에서, 기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잠재의식과의 교제 현상인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나 기도에서 지적으로 경각심을 깨우고 그리고 영적으로 진보하는 개별존재가 달성하는 인간 마음의 초(超)의식적 차원,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의 권역과 다소간 접촉하는, 그러한 기도의 권역도 또한 존재한다. 이에 더하여, 우주의 영적 기세들에 의한 수신과 그리고 인지에 관계되는, 참된 기도의 영적 위상이

분명하게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인간적이고 그리고 지적인 관계적-연합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91:2.7 (996.5) 기도는 진화하는 인간 마음의 종교적인 정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그것은 개인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막는 일에 큰 영향을 준다.

91:2.8 (996.6) 기도는, 인종적 진화에서의 자연 종교들과 연관되는 하나의 기법을 대표하며, 그것은 또한 계시의 종교, 곧 윤리적 탁월성을 지닌 더욱 높은 종교에서의 체험적 가치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것이다.

제 3 장. 기도와 타아인 자기

91:3.1 (996.7) 말을 사용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배운 아이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아무도 듣지 아니할지라도 생각을 소리치려는 경향,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다. 창조적인 상상력이 생기면서 그들은 가상(假想)의 동행자들과 대화를 나누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 방법으로 싹트는 자기는 가상적인 타아인 자기와 교제하려고 추구한다. 아이는 이러한 기법을 통하여 자신의 독백하는 회화를 가상의 대화로 바꾸는 방법을 일찍부터 터득하는데, 그 대화 속에서 이 타아인 자기는

말로 하는 그의 생각과 소원 표현에 응답한다. 어른의 사고에서의 아주 많은 것이 정신적으로는 회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91:3.2 (996.8) 초기의 원시 형태의 기도는 지금-현재 토다 부족의 반(半) 마술적인 암송(暗誦)과 매우 흡사하며, 특정한 어느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닌 그러한 기도였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 기법들은 타아인 자기에 대한 관념이 창발됨으로써 대화하는 유형의 교통으로 진화하는 경향이 있다. 시간이 되면, 타아인 자기 개념은 신성한 존엄성이라는 우월한 지위로 고취되고, 그리고 종교에서의 매개자로서 기도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원시적 유형의 기도는 지능의 차원과 그리고 참으로 윤리적인 기도의 차원을 달성하기 전에, 여러 위상을 거치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진화하도록 정해져 있다.

91:3.3 (997.1) 기도하는 필사자들의 이어지는 세대에 의해 인식되는 것처럼, 타아인 자기는 귀신들과 주물(呪物)들 그리고 영들의 단계를 거쳐 다신론적(多神論的) 하느님들의 개념으로 진화하고, 결국에는 유일하신 하느님, 가장 높은 이상(理想)들과 기도하는 자기의 가장

고귀한 소망을 체현하는 신성한 존재에 이르기까지 진화한다. 그렇게 하여 기도는 기도하는 자들의 가장 고귀한 가치들과 이상들을 보존함에 있어서 종교의 가장 강력한 매개자로 기능한다. 타아인 자기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하늘에 계신 신성한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출현될 때까지, 기도는 언제나 사회화시키고 교화하고 영성화 시키는 실천이다.

91:3.4 (997.2) 신앙으로 하는 단순한 기도는 인간 체험에서 강력한 진화를 입증하고, 그것에 의하여 원시적인 종교의 타아인 자기에 대한 허구적인 상징물과의 먼 옛날의 대화는, 무한자의 영과 교제를 나누는 차원으로 그리고 모든 지적인 창조의 주인이신 영원한 하느님과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실체에 대하여 진정으로 의식하는 차원으로 고양되게 되었다.

91:3.5 (997.3) 기도하는 체험 속에서의 초(超)자아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제외한다면, 윤리적인 기도가 나은 삶과 보다 높은 달성을 위하여 한 사람의 자기를 증진시키고 자아를 강화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기도는 인간적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모두의 길을 볼 수

있게 유도한다: 그것은 필사자 체험의 잠재의식 저장소에 대한 물질적인 원조와, 그리고 물질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 신비 감시자와 접촉하는, 초(超)의식적 경계에 이르는 영감과 안내이다.

91:3.6 (997.4) 기도는 지금까지 언제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중적인 인간 체험인데: 영적인 기법과 상호-연관된 심리적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두 가지 기능들은 결코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91:3.7 (997.5) 깨우친 기도는 반드시 외부에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하느님을 인식해야만 할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고 그리고 미(未)개인적인 신성, 내주하는 조절자도 인식해야만 한다. 사람이, 기도할 때, 파라다이스의 우주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애를 쓰려고 하는 것은 모두 맞는 일이다; 그러나, 가장 실천적인 목적을 위한 더욱 효과적인 기법은 바로 원시적 마음이 습관처럼 행해왔던 것과 똑 같이, 바로 옆에 있는 타아인 자기의 개념으로 되돌아 가 보는 것이며, 그리고는 이 타아인 자기의 관념이 단순한 상상에서부터 조절자의 사실적 현존으로서 필사자 사람 안에 내주한다는 하느님의

진리까지 진화해 온 것, 그리하여 사람이, 말하자면,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있는 하느님, 우주 아버지의 바로 그 현존이자 본질인 그리고 자신에게 내주하고 있는, 실제이자 진정이며 그리고 신성한 타아인 자기와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제 4 장. 윤리적인 기도

91:4.1 (997.6) 청원하는 자가 자기 동료들보다 유리한 이기적인 것을 추구할 때에는 어떤 기도도 윤리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기도는, 사심-없고 신성한 사랑에 입각한 윤리적 종교들과 모순된다. 그러한 비윤리적인 모든 기도는 가짜 마술의 원시적인 차원들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발전하는 문명들과 깨우친 종교들에 적합하지 않다. 이기적인 기도는 충실한 공의(公義) 위에 세워진 모든 윤리들의 마음에 위배된다.

91:4.2 (997.7) 기도가 행동을 대신할 정도로 그렇게 천하게 남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모든 윤리적 기도는 행동을 이끄는 자극제이며, 초자아-달성이라는 이상적인 목적을 향해 진취적으로 투쟁하게 이끄는 안내자이다.

91:4.3 (998.1) 너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있어서 공정 하라; 하느님께서 자신의 다른 자녀들, 네 형제들과 이웃들 그리고 심지어는 적들보다 더 너를 사랑하시는 편애를 기대하지 마라. 그러나 자연적이고 진화 종교들의 기도는, 후대의 계시된 종교에서의 기도와는 달리, 처음에는 윤리적인 것이 아니었다. 모든 기도는, 개별적으로 하던지 공동으로 하던지,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이타적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을 중심에 둘 수 있다.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아무 것도 추구하지 않고 그의 동료들을 위해서도 아무 것도 추구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의 그러한 태도들은 참된 경배의 차원으로 향하게 된다. 이기주의적인 기도들은 고백들과 청원들을 포함하며 물질적인 은혜에 대한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도는 그것이 용서를 취급할 때 그리고 증진된 자아-통제를 위해 지혜를 추구할 때 약간 더 윤리적이다.

91:4.4 (998.2) 비(非)이기적인 유형의 기도가 강하게 하고 위안을 주는 반면, 향상되는 과학적 발견이 법칙과 질서의 물리적 우주 안에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게 됨에 따라 물질주의적인 기도는 실망과 환멸을 주게 되어 있다. 한

개별존재의 또는 한 종족의 유년기는 원시적이고
이기적이며 물질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어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청원들은 특정한 범위에
대하여, 효과를 나타내어, 그들이 그러한 기도들의 응답을
성취하는 데 기여하는 그러한 노력과 고된 행사에
이르도록 변함없이 인도하고 있다. 신앙에서의 실제적인
기도는, 비록 그러한 청원들이 영적인 인정을 받을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삶의 기법을 증강시키는 일에
기여한다. 그러나 영적으로 향상된 사람은 그러한
기도들에 관한 원시적이거나 또는 미숙한 마음을
단념하도록 시도하는 데에서 큰 조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91:4.5 (998.3) 기도가 하느님을 변하게 하지는 않지만, 신앙으로
기도를 하고 확신에 찬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속에
거대한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종종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해라. 기도는 진화하는 종족들의 남녀 사람들
속에서 마음의 평화, 쾌활함, 침착, 용기, 자아-정복, 그리고
공정한-마음가짐의 선조가 되어왔다.

제 5 장. 기도의 사회적 반향

91:5.1 (998.4)

기도가, 조상에 대한 경배에서는 조상의 이상(理想)들을 육성하도록 이끈다. 그러나 신(神) 경배의 모습으로서의 기도는 그렇게 다른 모든 실천 관행들을 초월하는데, 이는 그것이 신성한 이상들을 육성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기도에서의 또 하나의 자기에 대한 개념이 최극이 되고 그리고 신성하게 됨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의 이상도 따라서 인간에 불과한 것에서 숭고하고 신성한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며, 그러한 모든 기도에서의 결과는 인간 성격의 강화와 그리고 인간 개인성의 심오한 통일이 된다.

91:5.2 (998.5)

그러나 기도가 항상 개별적인 것은 아니다. 집단이나 집회로 이루어지는 기도는 그 반향이 높이 사회화(社會化)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가 있다. 하나의 집단이 도덕적 강화와 영적 고양을 위하여 공동체 기도에 참여할 때, 그러한 헌신은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별존재들에게 반응을 일으킨다; 참여 자체로 인하여, 그들은 모든 것이 더욱 좋아진다. 심지어 도시 전체 또는 한 나라 전체가 그러한 기도예의 헌신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백과 회개와 기도는 개별존재들, 도시들,

나라들 그리고 온 민족들을 힘찬 개혁의 노력으로 그리고 과감한 성취를 향한 용기있는 행위로 이끌어 왔다..

91:5.3 (998.6) 만일 너희가 어떤 친구를 비난하는 습관을 극복하기를 참으로 갈망한다면, 그러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길은 너희 일생에 날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들의 사회적 반향은 대체로 두 가지 조건에 의존된다:

91:5.4 (998.7) 1. 기도 되고 있는 개인이 그가 기도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91:5.5 (999.1) 2. 기도하는 개인이 그가 기도하고 있는 개인과 친밀한 사회적 접촉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91:5.6 (999.2) 기도는 기법이며, 얼마 안 가서, 그것으로 모든 종교들은 제도화가 되어간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기도는 수많은 두번째 역할의 매개자들과 결합되는데, 사제(司祭), 성스러운 책, 경배 예식, 그리고 의식(儀式)들 처럼, 더러는 도움이 되고 더러는 결정적으로 해롭다.

91:5.7 (999.3) 그러나 보다 위대한 영적 빛을 지닌 마음들은, 자신들의 허약한 영적 통찰력의 동원을 위하여 상징주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다소 부족한 지능을 자질로서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참을성이 있고 그리고 너그러움이 있어야만 한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상징물이 없이도 하느님을-의식하는 자들은, 형식과 예식이 없이는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善)을 존경하기가 어렵고 신(神)을 경배하기가 어려운 자들에게 주고 있는, 상징의 은혜-사명활동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기도넘치는 경배 속에서, 대부분의 필사자들은 자신들의 헌신의 대상-목표를 나타내는 어떤 상징을 떠올리고 있다.

제 6 장. 기도의 범위

91:6.1 (999.4) 기도는, 한 영역의 개인적인 영적 기세와 물질적 감독자의 뜻과 행동에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의 물리적인 환경에 아무런 직접적 효과를 가질 수가 없다. 기도에서 청원을 펼치는 분야에는 매우 분명한 한계들이 있지만, 그러한 한계가 기도하는 자의 신앙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91:6.2 (999.5) 기도는, 실제적이고 유기적인 질병 치료 기법은 아니지만, 넘치는 건강을 누리는 데에 그리고 수많은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신경적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그리고 심지어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하는 실재적인 질환의 경우에도 기도가 다른 치료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여러 번 증가시키고 있다. 기도는 짜증나고 불평이 가득한 많은 병약자들을, 참아내는 환자의 표본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는 그로 하여금 다른 모든 고통받는 인간 고통자에게 하나의 영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든다.

91:6.3 (999.6) 기도의 효능에 관하여, 신성한 근원들로부터의 도움과 인도를 추구하려고 하는 항상 존재하는 충동과 과학적인 의구심을 조화시키는 일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행복과 개별적인 자아-통제와 사회적인 조화와 도덕적인 진보 그리고 영적인 달성을 위하여 신앙으로 하는 진지한 기도가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91:6.4 (999.7) 기도는, 심지어 순전히 인간적인 행위인 경우일지라도, 사람의 타아인 자기와의 대화인데, 인간

마음의 무의식적인 영역 속에 저장되고 보존되는 축적된 인간 본성적 힘들을 실현시키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 기법을 조성한다. 기도는, 그것의 종교적인 함축성과 영적인 의의(意義)를 제외한다면, 하나의 건전한 심리적 실천 관행이다. 인간의 체험적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만약에 충분히 심각하게 궁지에 몰리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어떤 근원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91:6.5 (999.8) 너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느님께 요청할 만큼 게을러서는 안되지만, 너희들 자신이 당면한 그 문제들을 단호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대처하면서 너희를 인도하고 지탱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지혜를 서슴지 말고 그에게 요청해라.

91:6.6 (999.9) 기도는 종교적인 문명의 진보와 보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왔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사실, 철학적인 지혜, 지적인 진지함 그리고 영적 신앙의 밝은 빛 안에서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사회의 더욱 앞선 진보와 영성화를 이룩하도록 여전히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예수가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

정직하게, 사심-없이, 공정함으로,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 기도하라.

91:6.7 (1000.1)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개인적 영적 체험안에 있는 기도의 효험은, 어떤 식으로도 그러한 경배자의 지적 압박, 철학적 해안, 사회적 차원, 문화적 지위, 또는 그 밖의 필사자의 획득물에 의존하지 않는다. 신앙의 기도에서의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수반되는 것들은 즉각적이고, 개인적이며 그리고 체험적이다. 다른 모든 필사자의 성취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 각자는 자신의 조물주와 교통할 수 있는 영역의 문턱, 곧 창조체가 창조자의 실체인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와 접촉할 수 있는, 그 곳에 것처럼 효과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다른 기법은 없다.

제 7 장. 신비주의, 황홀경 그리고 영감(靈感)

91:7.1 (1000.2)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의식을 배양하는 기법인 신비주의는 전체적으로는 훌륭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실천 관행들이 사회적인 고립을 야기하고 종교적인 광신의 지경에 달하게 되면, 그것들은 모두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과도한

신비주의가 신성한 통찰력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깊은 마음에서 솟아난 것인 경우가 너무나 흔하게 있다. 필사자 마음이 그 속에 내주하는 조절자와 접촉하는 것은, 헌신적인 명상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자기 동료 창조체들에 대한 사심-없는 사명활동 안에서 전심어리고 사랑 넘치는 봉사에 의해서 점점 더 자주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91:7.2 (1000.3) 지나간 시대들에 있었던 위대한 종교 교사(敎師)들과 선지자들은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느님을 아는 남자들과 여자들이었고, 자기 이웃 사람들을 사심-없이 보살핌으로써 자신들의 하느님을 최선으로 섬겼다. 예수가 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잠시 동안 자기들끼리 따로 떨어져서 묵상과 기도를 하도록 시키신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는 그들이 대중들과의 접촉하는-봉사에서 지내도록 하였다. 사람의 혼에게는 영적 영양은 물론이고 마찬가지로 영적 실습이 요구된다.

91:7.3 (1000.4) 종교적인 황홀경은 마음이 멀쩡한 상태에서 야기된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만, 그러한 체험들은 깊은

영적 성격의 현시활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순수하게 감성적인 영향들로부터 야기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종교적인 개인들은, 모든 생생한 심리적 예감들과 모든 강력한 감상적 체험들을 일종의 신성한 계시 또는 영적인 교통이라고 간주해서는 결코 안된다. 참된 종교적 황홀경은 대개 심오한 외적(外的) 평온함과 거의 완전한 감정적 통제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참된 예언적 환상은 초(超)심리적 예감이다. 그러한 천상의 방문들은 허위적인 환각이 아니며, 또한 무아경(無我境)의 황홀함도 아니다.

91:7.4 (1000.5) 인간 마음은, 잠재의식이 떠오르는 것에 대하여 또는 초의식의 충동에 대하여 그것이 민감할 때 소위 영감(靈感)이라고 불리는 것에 응답하여 작동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지, 의식(意識) 내용물의 그러한 증강이 개인에게는 다소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제어되지 않은 신비주의적 광신(狂信)과 자유분방한 종교적 황홀경은, 통찰력에 대한 증명서, 신성한 증명서로 생각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91:7.5 (1000.6) 신비주의와 황홀경 그리고 영감(靈感)의 이러한 이상한 종교적 체험들에 대한 실천적 진단은 이들 현상이 한 개별존재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관찰하는 것이다:

91:7.6 (1000.7) 1. 더 낮고 더 완벽한 육체적 건강을 누리게 하는가.

91:7.7 (1000.8) 2. 그의 정신적 삶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기능하는가.

91:7.8 (1000.9) 3.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을 더욱 충만하게 그리고 더욱 기쁘게 사회화하는가.

91:7.9 (1000.10) 4. 일상적인 필사자 실존에 있어서의 평범한 임무들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동시에 자신의 매일의 삶을 더욱 완벽하게 영성화 시키는가.

91:7.10 (1001.1) 5.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善)에 대한 사랑과 깊은 이해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가.

91:7.11 (1001.2) 6. 현재 인지되고 있는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영적 가치들을 보존시키는가.

91:7.12 (1001.3) 7. 그의 영적인 통찰력 — 하느님에 대한 인식(認識) — 을 증대시키는가.

91:7.13 (1001.4) 그러나 기도는 이러한 특별한 종교적 체험들과 실제적으로 관계적-연합되어 있지 않다. 기도가 과도하게 심미적(審美的)인 상태가 되면, 천국의 신성(神性)에 대한 더 없이 행복한 깊은 사색과 아름다움에 의해 거의 배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회화시키는 그것의 영향력 대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며 헌신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립되게 하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는 경향이 있다. 지나치게 사사로운 기도와 연관된 어떤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집단적인 기도, 공동체의 헌신에 의해 교정되고 예방된다.

제 8 장. 개인적인 체험으로서의 기도

91:8.1 (1001.5) 기도에는 진정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느님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전혀 생기기 전에 원시인이 이미 스스로 기도하였기 때문이다. 옛날 사람들은 두 가지 다른 상황에 닥칠 때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다. 긴박한 필요성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충동을 체험하였다; 기쁨이 넘칠 때 그 기쁨을 표현하고자 하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91:8.2 (1001.6) 기도는 마술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며; 그 둘은 서로 다른 기원을 갖는다. 마술은 상황에 맞게 신(神)을 조절하려는 것이었고; 기도는 개인성을 신(神)의 뜻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다. 참된 기도는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이지만; 마술은 그 두 가지 모두가 해당되지 않는다.

91:8.3 (1001.7) 기도는 확립된 관습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기적인 기원을 드리지 않으면 무서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91:8.4 (1001.8) 어떤 개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감사에 대한 조용한 표현이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찬양에 대한 집단적인 표현, 공동체적인 헌신의 표현이다; 때로는 그것이 다른 종교를 흉내낸 것이기도 하지만, 참된 기도란 창조체의 영적인 본성이 어디든지 계시는 창조자의 영의 현존과 나누는 진지하고도 신뢰하는 교제이다.

91:8.5 (1001.9) 기도는 하느님을-의식함의 자발적 표현일 수도 있고 또는 신학적 공식의 의미없는 낭독일 수도 있다. 그것은 하느님을 아는 혼(魂)의 환희에 넘치는 찬미일 수도 있고 또는 두려움에-지배당한 필사자의 노예처럼 복종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은 때로는 영적 간청의 깊은 감상적 표현이고 그리고 때로는 경건한 구절들의 뻔뻔스러운 소리침이다. 기도는 기쁨넘치는 찬미일 수도 있으며 용서를 위한 겸손한 탄원일 수도 있다.

91:8.6 (1001.10)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원하는 어린아이 같은 탄원일 수도 있고, 또는 도덕적인 성장과 영적인 힘을 원하는 성숙한 애원일 수도 있다. 청원은 날마다 필요한 빵일 수도 있고, 또는 하느님을 찾아내어 그의 뜻을 행하려는 전심전력의 염원을 체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은 온통 이기적인 부탁일 수도 있고, 사심-없는 형제신분의 실현을 향한 참되고 뛰어난 몸짓일 수도 있다.

91:8.7 (1001.11) 기도는 복수를 위한 성난 고함 소리가 될 수 있고 자기 적을 위해 자비를 간청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하느님을 변화시키는 바램의 표현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기법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길을 잃었던 죄인이 필경 준엄하다 여겨지는 재판관 앞에서 움츠리면서 하는 비굴한 탄원일 수도 있고, 살아있는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의 해방된 아들의 기쁨 넘치는 표현일 수도 있다.

91:8.8 (1001.12) 현대인은 순전히 개인적인 방법으로 하느님과 일들에 관해 대화한다는 생각때문에 당혹해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규칙적인 기도를 내던져 버렸다; 그들은 오직 특별한 압력 아래에 있어야—비상시에—기도한다. 사람은 하느님과 대화하는 데에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한다, 그러나 오직 영적 어린아이만이 을 설득하려 하거나 주제넘게 변화시키려고 나선다..

91:8.9 (1002.1) 그러나 실제적인 기도는 실체 달성을 한다. 심지어는 공기 기류가 상승하고 있을지라도 어떤 새든지 날개를 활짝 펴지 않고는 솟구쳐 오를 수 없다. 기도는 사람을 높이 올리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우주의 상승하는 영적 기류의 활용함으로써 진보해 나아가는 하나의 기법이기 때문이다.

91:8.10 (1002.2) 진정한 기도는 영적 성장에 보탬이 되고, 태도를 변경하고, 신성과의 교제로부터 오는 만족을 산출한다. 그것은 하느님을-의식함의 자발적인 분출이다.

91:8.11 (1002.3) 하느님은 진리에 대한 증강된 계시와 아름다움에 대한 증진된 인식 그리고 선함에 대한 확대된 개념을 사람에게 제공하심으로써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는 주관적인 몸짓이지만, 인간 체험의 영적 차원들에서 막강한 객관적 실체들과 접촉을 이룬다; 그것은 인간이 초인간적인 가치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의미넘치는 내뻗침이다. 그것은 가장 효능이 있는 영적-성장 자극제이다.

91:8.12 (1002.4) 말은 기도와 상관이 없다; 그것은 영적 애원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어쩌다 맡겨볼 수도 있는 단순한 지적 통로에 불과하다. 기도에서의 말의 가치는 사적인 헌신 예배에서는 순전히 자기 암시이며 그리고 집단적 헌신 예배에서는 사회적 암시에 불과하다. 하느님은 그 혼의 태도에 응답하며, 말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91:8.13 (1002.5) 기도는 갈등으로부터 회피하는 기법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에 직면하여 자라가게 하는 자극제이다. 오직

가치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충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제 9 장. 효과적인 기도의 조건

91:9.1 (1002.6) 만일에 너희가 효과적인 기도를 드리고자 한다면, 널리 효력을 미치는 청원의 법칙을 마음속에 새겨야만 한다:

91:9.2 (1002.7) 1. 너희는 우주실체의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그리고 용기 넘치게 마주함으로서 힘 있는 기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한다. 너희는 조화우주 정력(精力)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91:9.3 (1002.8) 2. 너희는 인간적인 조절을 위한 인간적인 재능을 정직하게 모두 쏟아 부어야만 한다. 너희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된다.

91:9.4 (1002.9) 3. 너희는 모든 마음의 소원과 혼이 갈망하는 모든 것들을 영적인 성장으로 변환시키는 포용에 내어 맡겨야만 한다. 너희는 의미들의 향상과 가치들의 증진을 체험했어야 한다.

91:9.5 (1002.10) 4. 너희는 신성한 뜻에 대한 전심어린 선택을 일으키고 있어야만 한다. 너희는 결정이 내려질 수 없는 우유부단의 죽어있는 중심(中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91:9.6 (1002.11) 5. 너희는 아버지의 뜻을 인식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선택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아버지의 뜻을 실재적으로 행하려고 분별불가적인 헌납과 역동적인 봉헌을 일으켜 발휘하고 있어야 한다.

91:9.7 (1002.12) 6. 너희 기도는 오로지 파라다이스를 향한 상승 —신성한 완전성 달성— 안에서 마주치는 특정한 인간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신성한 지혜에 대하여 안내를 받을 것이다.

91:9.8 (1002.13) 7. 그리고 너희는 신앙 — 살아있는 신앙 — 을 가져야만 한다.

91:9.9 (1002.14) [유란시아 중도자들의 우두머리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92 편 종교의 후기 진화

92:0.1 (1003.1) 사람은 유란시아에 어떤 체계적인 계시들도 주어지기 훨씬 전에 자신의 진화적인 체험의 일부부분으로써 자연적으로 기원된 일종의 종교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기원된 이 종교 그 자체는 사람의 초(超)동물적 자질들의 산물이다. 진화 종교는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체험적 생애에 두루 미개인과 야만인 그리고 문명인 속에서 작용하고 그 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영향들의 역할을 통하여 서서히 발생되었다:

92:0.2 (1003.2) 1. 경배의 보조자—실체를 인식하기 위한 초(超)동물적 잠재에서의 동물적 의식(意識) 속에서 출현함. 이것은 신(神)을 향한 근본적인 인간 본능이라고 불릴 수도 있다.

92:0.3 (1003.3) 2. 지혜의 보조자—보다 높은 표현 방향 속에서 신(神) 실체(實體)에 대한 계속 확대되는 개념들을 향하여 그것의 숭배를 지도하는 경향이 있는 경건한 마음속에 현시활동.

92:0.4 (1003.4) 3. 성령—이것은 최초의 초(超)마음 증여이며, 진실한 모든 인간적 개인성들 속에 반드시 나타난다. 경배-

갈망과 지혜-욕구의 마음에 대한 이 사명활동은, 신학적 개념 안에서 그리고 또한 실재적이고 사실적인 개인성 체험에 따른 둘 모두 안에서, 인간 생존에 대한 기본원리를 자아-인식하는 수용능력을 창조한다.

92:0.5 (1003.5) 이러한 세 가지 신성한 역할들의 조화-협동 기능은 진화 종교를 태동시키고 추진시키기에 아주 충분하다. 이러한 영향들은 나중에 생각 조절자들과 세라핌천사들 그리고 진리의 영에 의해서 증강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종교적인 발전의 속도를 가속시킨다. 이들 대리자들은 유란시아에서 오래 전부터 기능을 해왔는데, 이 행성이 거주민이 사는 구체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존속될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대리자들의 잠재 대부분은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적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 그 대부분은 필사자 종교가 모론시아의 가치와 영 진실의 천상(天上)의 정상을 향하여 단계적으로 상승됨에 따라 앞으로 올 시대에 밝혀질 것이다.

제 1 장. 종교의 진화적인 본성

92:1.1 (1003.6) 종교의 진화는 초기의 두려움과 귀신들로부터 시작하였고 그 뒤를 잇는 여러 가지 발전 단계들을

거쳤는데, 그 중에는 영들을 지배하려는 노력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영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였다. 부족의 주물들은 토렘과 부족 하느님들로 발전하였다; 마술적인 방식들은 오늘날의 기도가 되었다. 처음에는 희생 제물의 형태였던 할레는 위생적인 절차의 하나로 바뀌었다.

92:1.2 (1003.7) 종교는 종족들의 미개한 미성숙 단계 전체 기간에 걸쳐 자연 경배로부터 발전하여 귀신 경배 단계를 거치고 주물숭배로 변화되었다. 문명의 태동과 함께 인간 종족은 더욱 신비하고 상징적인 신앙들을 신봉하였고, 한편으로는 이제 성숙기에 접근하면서, 인류는 실제 종교의 깊은 이해를 위하여, 심지어는 진리 그 자체의 계시의 시작을 위하여 무르익어가고 있다.

92:1.3 (1004.1) 종교는 영적인 신념들과 환경에 대한 마음의 생물학적 반응으로써 생겨났으며; 한 종족 안에서 소멸되거나 변경되어야 할 궁극적인 것이다. 종교는 어느 시대에서든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는 사회적 조절이다. 사회적인 관례로서 그것은 종교적 관습들, 상징들, 숭배자 집단, 경전들, 제단들, 성소들, 신전들을 포용하고 있다. 성수, 유물, 주물, 부적, 제의, 종(鐘), 북,

그리고 사제 제도 등은 모든 종교들에게 공통적이다.
그리고 순수하게 진화된 종교로부터 마술이나 마법을
전반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92:1.4 (1004.2) 신비와 힘은 언제나 종교적 느낌과 두려움을
자극해 온 반면, 감정은 항상 그것들의 발전에 있어서
강력한 조절 요소로 기능하였다. 두려움은 언제든지
근본적인 종교적 자극제가 되어 왔다. 두려움은 진화
종교의 하느님들을 형성하였고 원시적인 신앙인들의
종교적 경배를 유발시켰다. 문명이 발전되자, 두려움은
존경과 찬양과 존중과 동정심에 의해 수정되었고, 그
다음에는 양심의 가책과 회개에 의해서 더욱 조절되었다.

92:1.5 (1004.3) 아시아의 어떤 민족은 “하느님은 심히 두려운
존재이시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순전히 진화
종교에서 발생한 것이다. 가장 높은 유형의 삶을
게시하셨던 예수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셨다.

제 2 장. 종교와 사회관계

92:2.1 (1004.4) 종교는 인간의 모든 제도들 중에서 가장 완고하고
단호한 것이지만, 변화하는 공동체에 적응하기를

싫어한다. 결국에는 진화 종교가 변화하는 사회관례를 반영하게 되는데, 역으로 그 관습은 계시된 종교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다. 서서히, 분명하게, 그러나 마지못해서, 종교(경배)는 지혜—체험적인 이성—에 의해 지도되고 신성한 계시에 의해 조명되는 지식—의 뒤를 쫓아서 따라간다.

92:2.2 (1004.5) 종교는 사회관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미 존재하였던 것은 오래되었고 신성하게 여겨진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돌로 만든 도구들이 청동기와 철기 시대까지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돌로 된 제단을 만들 때에는, 다듬은 돌로 만들지 말 것이니, 만일 너희가 도구를 사용하여 그것을 만들면 그것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힌두교도들은 제단의 불을 붙일 때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 종교의 진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은 항상 신성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성례에 있어서 새롭고도 가공된 음식은 허용되지 않았고 가장 원시적인 음식물만이 허용되었는데: “불로 구운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쓴 나물들과 함께 제공되었다.” 모든 유형의 사회적

관습들과 심지어는 법정의 절차들도 옛 형태들을 고수하고 있다.

92:2.3 (1004.6) 현대인이 여러 다른 종교의 경전들 안에서 음란하게 보일 수도 있는 많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에 놀라게 될 때, 그들은 예전 세대들이 그들 조상이 거룩하고 신성하게 여겼던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였는지를 잠시 멈추어 생각해야만 한다. 어떤 세대가 음란하게 여길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은, 그 이전 세대에 그들이 사회관례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졌고 심지어는 인정된 종교예식이라고 여겼다. 상당히 많은 종교적 논쟁들은, 오래되었지만 비난받아 마땅한 실천 관행들을 새롭게 진보된 논리와 조화시키려는, 옛날의 진부한 관습들을 교리로서 영속화시키는 일을 정당화시키는 그럴듯한 이론을 발견하려는, 끝없는 시도 때문에 일어났다.

92:2.4 (1004.7) 그러나 종교적인 성장에 있어서 너무 갑작스러운 향상을 꾀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일 뿐이다. 종족 또는 민족은 어떤 진보된 종교에서든지 단지, 현재의 진화적인 지위와 합리적으로 모순이 없이 호환성이 있고, 그리고

나아가 적응에 대한 적절한 분위기가 더해질 때에 한하여 동화될 수 있을 뿐이다. 사회적, 기후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들은 모두 종교적 진화의 과정과 발전을 결정하는 일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도덕성은 종교에 의해서, 진화 종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종교의 형태들이 그 인종의 도덕성에 의해 규정된다.

92:2.5 (1005.1) 사람 종족들은 이상하고 새로운 종교를 오직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인다; 실재적으로는 그것을 자기들의 사회관례와 옛날의 신앙 방법에 끼워 맞춘다. 이러한 사실은 뉴질랜드에 있는 어떤 특이한 부족의 경우에서 잘 설명되고 있는데, 그들의 사제(司祭)들은 그리스도교를 명목상으로만 받아들인 후에, 자기 부족이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되었고 자유롭게 성(性)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며 비난을 받을만한 수많은 다른 구시대의 관습들을 지키도록 허용한다는 직접적인 계시를 가브리엘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새로 그리스도 교인이 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새롭고도 덜 엄격한 그리스도교로 즉시 개종하였다.

92:2.6 (1005.2) 종교는 한 때 모든 종류의 부적합한 행위와 모순된 행위를 인정하였는데, 현재는 비도덕적이거나 죄악시되는 모든 것들을 실천적으로 허용한 때가 있었다. 체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이성의 도움을 받지 않은 양심은 인간의 행위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인도한 적이 전혀 없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양심은 인간의 혼에게 이야기하는 신성한 음성이 아니다. 그것은 실존하는 어떤 단계의 사회관례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에 대한 총합에 불과하다;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의 반응에 대해 인간적으로 인식하는 이상(理想)을 대변할 뿐이다.

제 3 장. 진화 종교의 본성

92:3.1 (1005.3) 인간 종교에 대한 연구는 지나간 시대들의 흔적을 담고 있는 사회적 계층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사람모습의-신(神)으로서의 하느님들에 대한 사회관례는 맨 처음 그러한 신(神)들을 착상한 사람들의 도덕의 참다운 반영이다. 고대의 종교들과 신화는 오래 전에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의 믿음과 전통을 신실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오랜 예배종파 실천 관행들은 보다 새로운 경제적 관습들과 사회적인 진화들과 함께 존속하였으며, 물론 심하게 대립되어 왔다. 그 예배종파의 남은 흔적들이

과거의 인종적인 종교들의 참된 특성들을 보여준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예배종파들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신조들을 보급하기 위하여 형태화 되었다는 사실이다.

92:3.2 (1005.4) 종교는 언제나 대부분 종교예배, 의식절차, 관행, 예식, 독단론의 문제였다. 그것은 대개 끊임없이 평온과-이간질하는 실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착각에 오염되어 왔다. 기본적인 종교 관념 곧, 주문-낭송, 영감, 계시, 신-달래기, 참회, 죄 값 갚기, 중재, 희생 제물, 기도, 자백, 경배, 죽은 뒤의 생존, 성례, 예식, 면죄, 구원, 대속, 계약, 더러움, 정화, 예언, 원죄들—그것들은 모두 원시적인, 귀신에 대한 두려움에 있었던 옛 시절로 거슬러 되돌아간다.

92:3.3 (1005.5) 원시적인 종교는 무덤 저편의 생활을 인정하기까지 확장된 물질적 실존에 대한 갈등에 불과하다. 그러한 신조가 발견되는 것은, 상상에 의한 귀신-영 세계의 권역 속으로 자아-보존 투쟁을 확장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화 종교를 비판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 조심하기 바란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었으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관념이 갖는 힘이 그 확실성이나 진실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그것을 호소하는 생생함에 있다는 것이다.

92:3.4 (1006.1) 진화 종교는 변화 또는 개정을 준비시키지 않는다; 과학과는 달리, 그것은 그 자체의 진보적인 수정을 제공하지 않는다. 진화된 종교는 존중을 강요하는데 그것은 그 추종자들이 그것을 진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한 때 성인(聖人)들에게 전해졌던 그 신앙은” 이론적으로는 최종적이었고 오류가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 예배종파는 발전을 반대하였는데, 왜냐하면 실제 진보는 그 예배종파 자체를 변경시키거나 파괴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정이 강요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92:3.5 (1006.2) 오로지 두 가지 영향들만이 자연 종교의 독단론을 변화시키고 증진시킬 수 있는데: 서서히 전진하는 사회관례의 압력과 주기적으로 밝혀지는 신기원인 계시가 그것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진보의 속도가 느린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진보적이거나 창의적인 사람은 요술쟁이로 취급되어 살해되었다. 그

예배종파는 세대 안에서 신(新)시대와 그리고 긴 세월의
순환 주기 속에서 느리게 전진한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움직인다. 귀신들에 대한 진화적인 믿음은, 그 기원이 되는
미신을 결국에는 파괴시키게 될 계시 종교의 철학을
위하여 기초를 깔아 주었다.

92:3.6 (1006.3) 종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 발전을 방해해
왔지만, 종교가 없었다면 영속적인 도덕성도 윤리도
없었을 것이며, 훌륭한 문명도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종교는 많은 비종교적 문화의 어머니가 되었다: 조각술은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고안건축술은 신전 건축에서,
시문학은 주문에서, 음악은 경배의 영창으로부터, 연극은
영의 안내를 위한 행위에서, 그리고 춤은 계절적인 경배
축제로부터 기원되었다.

92:3.7 (1006.4) 그러나 문명의 발달과 보존에 종교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이 촉진시키고 유지시켰을 바로 그
문명을 무능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일을 많이 하였다는
사실 역시 기록되어야만 한다. 종교는 산업 활동들과
경제적 발전을 방해해 왔으며; 노동을 낭비해 왔고 자본을

탕진해 왔으며; 가정 체제에 항상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평화와 선한 뜻을 충분히 조장하지 않았다; 때로는 교육을 무시하고 과학의 발전을 지체시켰으며; 죽음을 거짓되게 장식하기 위하여 삶을 과도하게 약화시켰다. 진화 종교, 인간의 종교는 이러한 모든 것들과 그 외에도 더 많은 오류들과 실수들 그리고 실책들을 범하는 죄를 지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문화적 윤리와 문명화된 도덕성 그리고 사회적인 일관성을 유지하였으며, 후대에 계시된 종교로 하여금 이러한 많은 진화적 결점들을 보충할 수 있게 만들었다.

92:3.8 (1006.5) 진화 종교는 사람이 지불한 가장 비싼 비용이 되어 왔지만 비할 데 없이 효력적인 제도였다. 사람적인 종교는 오직 진화적인 문명의 견지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만약에 사람이 동물로부터 진화된 상승적인 산물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종교적 발전 과정은 정당화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92:3.9 (1006.6) 종교는 자본의 축적을 촉진시켰으며; 특정한 종류의 일들을 육성하였고; 시간이 남는 사제들에 의해서 예술과 지식이 증진되었다; 윤리적인 방편에 있어서의

이러한 모든 초기 실수들의 결과로 인류는 결국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정직한 무당들과 부정직한 무당들 때문에 몹시 비용이 많이 지출되었지만, 그들은 그 값에 해당되는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학구적인 전문직들과 과학 그 자체는 더부살이하는 사제 제도로부터 발생되었다. 종교는 문명을 육성시켰고 사회적인 공동체를 제공하였다; 모든 시대에 있어서 도덕적인 경찰력이 되어 왔다. 종교는 지혜를 가능하게 만드는 인간적인 단련과 자아-통제를 제공하였다. 종교는 게으르고 고통 받는 인간성으로 하여금 지적인 타성의 천연적인 상태로부터 앞으로 그리고 위로 나아가게 하여 이성과 지혜의 높은 차원들로 무자비하게 몰아내는 진화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채찍이다.

92:3.10 (1006.7) 그리고 동물로부터 상승한 존재의 이러한 종교적인 유산은, 계시된 종교의 계속적인 검열에 의해서 그리고 참된 과학의 맹렬한 용광로에 의해서 끊임없이 정제되고 고상하게 되어야만 한다.

제 4 장. 계시의 선물

92:4.1 (1007.1) 계시는 진화적이지만 항상 진보적이다. 세계 역사의 시대들이 흐르는 동안에, 종교의 계시들은 항상 확대되었고 연속적으로 더욱 많은 깨우침을 이룩하였다. 연속적인 진화의 종교들을 분류하고 검사하는 것이 계시의 임무이다. 그러나 만약에 계시가 진화적인 그 종교들을 고상하게 하고 증진시킨다면, 그러한 신성한 축복들은 그것들이 제시된 그 시대의 생각과 반응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르침들을 나타내야만 한다. 그래서 계시는 항상 진화와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시의 종교는 언제나 반드시 사람의 접수성의 수용능력에 의해서 제한되어야만 한다.

92:4.2 (1007.2) 그러나 분명한 연결성이나 또는 유래와 상관없이, 계시 종교들은 항상 최종적인 가치를 갖는 어떤 신(神)을 믿는 특징이 있고 죽음 이후에 개인성 정체성이 생존된다는 어떤 개념을 믿는 특징이 있다.

92:4.3 (1007.3) 진화 종교는 논리적이지 않고 정서적이다. 그것은 가상적인 귀신-영 세계—인간 믿음-반영,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깨달음과 두려움에 의해 자극됨—를 믿는

믿음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다. 계시 종교는 실제적인 영적 세계에 의해서 제시된다; 우주적인 신(神)들을 믿고 의존하기에 굶주린 필사자들에 대한 초(超)지능적인 조화우주의 응답이다. 진화 종교는 진리를 찾아서 간접적으로 집단화하는 인간성을 묘사한다; 계시 종교는 바로 그 진리 자체이다.

92:4.4 (1007.4) 종교적인 계시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신기원인 의의(意義)를 갖는 경우는 다섯 번밖에 없었다. 이것들은 다음과 같다:

92:4.5 (1007.5) 1. 달라마시아의 가르침들. 첫째근원이며 중심에 대한 참된 개념은 칼리가스티아 영주 참모진의 육체적인 100명 요원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유란시아에 제공되었다. 신(神)에 대한 이러한 확대되는 계시는, 교육 체제의 붕괴와 행성 분리에 의해 갑자기 중단될 때까지 300,000년 이상 동안 계속되었다. 반의 활동을 제외한다면, 달라마시아의 계시의 영향은 온 세상에서 실천적으로 상실되었다. 심지어는 낯-사람들도 아담이 도착될 무렵에는 이 진리는 이미 잊은 상태에 있었다. 그 100명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적색 인종들이

그것들을 가장 오래 간직하였지만, 위대한 영에 대한 관념은 그리스도교와 접촉하였을 때 아메리카 원주민 종교 속에 있는 어렴풋한 관념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때 그것을 크게 정화하고 강화시켰다.

92:4.6 (1007.6) 2. 에덴의 가르침들. 아담과 이브는 모든 진화적인 민족들에게 아버지께 대한 개념을 다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에덴의 붕괴는 그것이 언제까지나 충분히 시작되기 전에 아담의-계시의 과정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중단된 아담의 가르침들은 셋-사람 사제들에 의해서 이어졌고, 이 진리들 중의 일부는 이 세상에서 온통 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레반트 종족의 종교적인 진화의 전체 경향은 셋-사람들의 가르침들에 의해서 변형되었다. 그러나 기원 전 2,500년경에 이르러서 인류는 에덴의 시대에 후원되었던 계시를 이미 크게 상실한 상태였다.

92:4.7 (1007.7) 3. 살렘의 멜기세덱. 비상사태를 위한 네바돈의 아들이 유란시아에 세 번째 계시의 시대를 열어 주었다. 그의 가르침들의 주요 교훈은 신뢰와 신앙이었다. 그는 신뢰가 하느님의 전능한 은혜임을 가르쳤고 신앙은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하느님의 호의를 살 수 있는

행위임을 선포하였다. 그의 가르침들은 여러 가지 진화 종교들의 실천 관행들과 신념들과 점차적으로 섞였으며 마침내 그리스도 이후 첫 1,000년이 시작될 즈음에 유란시아에 나타난 신학 체계들로 발전하였다.

92:4.8 (1008.1) 4.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미가엘은 하느님에 대한 개념을 우주 아버지로서 유란시아에 네 번째로 제시하셨으며, 이러한 가르침은 대개 그 이후로 계속 유지되었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과 봉사, 그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사랑의 역사를 창조체 아들이 자발적으로 깨닫고 그에 반응하는 사랑으로 드리는 경배와, 이러한 경배 속에서 그러한 창조체 아들들이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를 섬기는 기쁨이 넘치는 실현 안에서 그들이 자기 형제들에게 제공하는 자유 의지적인 봉사였다.

92:4.9 (1008.2) 5. 유란시아 글. 지금 이것이 그 중 하나인, 글들이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에게 가장 최근에 제시된 진리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 글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계시들과는 다르다, 이는 이 글들이 단일 우주 개인성의 작업이 아니라 많은 존재들에 의한 합작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 아버지에 대한 어떤 계시라도 완벽하게 달성되는 것은 언제까지나 불가능하다. 다른 모든 천상(天上)의 사명활동들은 부분적이고 과도기적이며 실천적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지역적 조건에 맞추어졌을 뿐 그 이상은 아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이것이 모든 계시들의 즉각적인 기세와 권위를 줄어둘게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제는 비록 이것의 미래 영향과 권위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유란시아의 필사 종족에 대한 진리의 가장 최근의 계시인, 그러한 숨김없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기가 유란시아에 이르렀다.

제 5 장. 위대한 종교적 영도자들

^{92:5.1 (1008.3)} 진화 종교에 있어서는, 하느님들이 인간의 형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 반면; 계시 종교에서는,—신성의 유한한 모습으로 형성되었을 지라도—사람들이 하느님의 아들들이라고 가르쳤다; 계시적인 가르침들과 진화의 산물에서 혼합되고 합성된 믿음 안에서, 하느님 개념은 다음의 혼합이다:

^{92:5.2 (1008.4)} 1. 진화적인 예배종파들의 선재하는 관념들.

92:5.3 (1008.5) 2. 계시된 종교의 숭고한 이상(理想)들.

92:5.4 (1008.6) 3. 위대한 종교 영도자들, 인류의 선지자들과
선생들의 개인적인 관점들.

92:5.5 (1008.7) 가장 위대한 종교 신(新)시대는 어떤 눈에 띄는
개인성의 삶과 가르침에 의해서 개시되어 왔으며;
영도자관계가 역사상 훌륭한 도덕적 활동들 대부분을
일으켜 왔다. 그리고 인간들은 그의 가르침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항상 그 영도자를 숭배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그가 선포한 진리들을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인성을 존경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진화적인 인간의 가슴속에는 저
위로부터의 도움을 본능적으로 바라는 속성이 있다.
이러한 열망은 행성영주와 그 이후의 물질아들들이 이
세상에 출현할 것을 기대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유란시아에서 인간은 이러한 초인간적 영도자들과
통치자들을 빼앗겼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초자연적인 기원과 기적적인 생애를 관련시키는 전설들로
자신의 인간적 영도자들을 덮어쓰움으로써 이러한 손실을
메우려고 계속 추구하는 것이다.

92:5.6 (1008.8) 여러 종족들은 자기 영도자들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상상해왔다; 그들의 생애는 기적적인 에피소드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 집단들 각각은 그들의 재림을 언제나 고대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부족민들은 아직도 징기스칸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티베트와 중국과 인도에서는 부처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슬람 사람들은 모하메드의 재림을 고대한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예수나인 오나모나론톤의 재림을 기다리고; 히브리인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통치자로서 아담의 재림을 기다린다. 바빌로니아에서는 아담 전설, 인간과 하느님을 연결하는 하느님-의-아들 관념의 영속으로 마르덱 하느님이 있었다. 아담이 이 세상에 출현한 이후로는 소위 하느님의 아들들이 세계 종족들 사이에 두루 퍼져 있었다.

92:5.7 (1009.1) 그러나 그들이 종종 사로잡히는 미신적인 두려움과는 상관없이, 이 선생들이, 계시된 진리라는 지렛대들이 인류의 도덕성과 철학과 종교의 진보를 위하여 의존하였던 현세적 개인성 지레받침들이었던 것은 하나의 사실로 남아 있다.

92:5.8 (1009.2)

오나가로부터 구루 나낙에 이르기까지 유란시아의 백만 년 인류 역사 속에 수백 명의 종교 영도자들이 있었다. 이 시기 동안에 종교적인 진리와 영적(靈的)인 신앙의 썰물과 밀물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유란시아 종교가 부흥되었던 각각의 시기는, 과거에, 어떤 종교적 영도자의 삶과 가르침들과 정체성이 확인되어 왔다. 최근 시대의 선생들을 고려함에 있어서, 아담의-이후 유란시아의 7개 주요 종교 신(新)시대들로 그들을 묶는 것이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92:5.9 (1009.3)

1. 셋-사람 시대. 아모사드의 지도력 아래에서 다시 탄생되었던, 셋-사람 사제들은, 아담의-이후 시대의 위대한 선생들이 되었다. 그들은 안드-사람들이 차지한 땅 전역에서 활동하였으며, 그들의 영향력은 그리스인들과 수메르인들 그리고 힌두인들 사이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었다. 힌두인들 사이에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힌두 신앙의 브라만들로 계속되고 있다. 셋-사람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아담에 의해서 계시되었던 삼위일체 개념을 전반적으로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92:5.10 (1009.4)

2. 멜기세덱 선교사들의 시대. 유란시아의 종교는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그리스도 이전 약 2,000년경에 살렘에 살면서 가르쳤을 때 그에 의해서 임명되었던 그 선생들의 노력에 의해서 상당히 재생되었다. 이 선교사들은 신앙이 하느님의 은혜를 위한 대가라고 선포하였으며, 그들의 가르침들이 비록 즉시적으로 나타나는 종교들의 비생산적인 것이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후대의 가르침들이 유란시아의 그 종교를 세우게 되는 기초들을 형성하였다.

92:5.11 (1009.5)

3. 멜기세덱 이후의 시대. 아메니뎁과 이크나톤 두 사람이 이 기간 동안 가르치기는 하였지만, 멜기세덱 이후 시대에 종교적으로 뛰어난 천재는 레반트의 베도윈 집단의 영도자이며 히브리 종교의 창시자인—모세였다. 모세는 유일신 개념을 가르쳤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느님이신 주님은 유일하신 하느님이시다.”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 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는 자기 민족들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는 귀신 예배종파를 뿌리 뽑으려고 끈질기게 노력하였고, 심지어는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명하였다. 모세의 유일신 개념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불순물이 섞이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그의 가르침들 대부분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었다. 모세의 위대함은 그의 지혜와 총명함에 있다. 하느님에 대한 더욱 위대한 개념들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진보된 신념들을 채택하도록 그토록 성공적으로 설득한 경우는 없었다.

92:5.12 (1009.6) 4. 그리스도 이전 6세기.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유란시아에서 전에 간증되었던 종교적 각성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세기들 중의 하나인 이때에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일어났었다. 이 사람들 중에는 고타마, 공자, 노자, 조로아스터, 그리고 자이나교 선생들이 포함되지 않을 수 없다. 고타마의 가르침들은 아시아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를 부처로 존경하고 있다. 공자는 중국인에게 도덕성을, 플라톤은 그리스인에게 철학을 제공하였으며, 그 두 사람의 가르침들에게 종교적인 반향이 있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두 사람 모두 종교 선생이 아니었다; 노자(老子)는 인간성에 치중한 공자나 이상주의에 치중한 플라톤보다는 더 확실하게 하느님의 개념을 도교(道教)에서 나타내었다. 조로아스터는 널리 퍼진 이원적(二元的)인 영성주의, 선한

영과 악한 영의 개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동시에, 하나의 영원한 신(神)의 관념과 어두움에 대한 빛의 영원한 승리의 관념을 명확하게 강화시켰다.

92:5.13 (1010.1) 5. 그리스도 이후 첫 세기. 종교적 선생으로서, 나사렛 예수는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설립되었던 예배종파 집단과 함께 출발하였으며, 음식과 형식으로부터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멀리까지 전진하였다. 예수를 제외한다면, 타루수스 바울과 알렉산드리아의 필로가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생들이었다. 종교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담고 있는 그 신앙의 진화 속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왔다.

92:5.14 (1010.2) 6. 그리스도 이후 6세기. 모하메드는 그의 시대에 있었던 많은 신조들보다 우월한 하나의 종교를 설립하였다. 그의 종교는 이방인들 신앙들이 사회적 요구 조건들을 배척하고 자기 민족의 종교적인 생활의 모순점을 배척하였다.

92:5.15 (1010.3) 7. 그리스도 이후 15세기. 이 기간에는 두 가지 종교 운동이 있었는데: 서방에서의 그리스도교 합일의

붕괴와 동방에서의 새로운 종교의 통합이 그것이었다. 유럽에서는 제도화된 그리스도교가, 더욱 증진된 성장과 합일이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부적응성을 이룩하였다. 동방에서는 이슬람교와 힌두교 그리고 불교의 병합된 교훈들이 나낙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시크교로 합성되었는데, 그것은 아시아에서 가장 진보된 종교들 중의 하나였다.

92:5.16 (1010.4) 유란시아의 미래는 종교적인 진리—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모든 창조체들의 형제우애관계—를 가르치는 선생들이 출현되는 특성을 틀림없이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래에 나타날 이러한 선지자들의 열렬하고도 진지한 수고가 종교 간의 장벽을 강화시키는 쪽으로는 덜 지향하고, 사타니아의 유란시아 특징을 이루는, 의견을 달리하는 지적 신학들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영적인 경배의 종교적인 형제신분을 증강시키는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지기를 바란다.

제 6 장. 혼성된 종교들

92:6.1 (1010.5) 20세기의 유란시아 종교들은 인간의 경배 충동의 사회적 진화에 관한 흥미 있는 견본을 제공하였다.

대부분의 신앙들은 귀신 예배종파의 시대 이후로 거의 진보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아프리카의 피그미족들은 그들 중의 일부분이 영적 환경을 미약하게 믿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종교적 태도는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오늘날의 상태는 종교의 진화가 시작했을 당시의 원시인의 상태와 똑같다. 원시적인 종교의 기본 신념은 죽음 이후의 생존이었다. 개인적인 하느님을 경배하는 관념은 진보된 진화적 발전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계시에 있어서의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하였다. 다야크족은 가장 원시적인 종교적 실천 관행만을 진화시켜 왔다. 비교적 최근에 에스키모인 들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하느님에 대한 매우 빈약한 개념들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귀신들을 믿었고 죽음 이후에 어떤 형태로 생존된다는 불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 지금-현재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과 어두움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미숙한 조상 숭배 개념만을 갖고 있다. 줄루족들은 이제 막, 귀신에 대한 두려움과 희생제물의 종교가 진화하고 있다. 그리스도교인 들과 마호멧 교도들의 선교 활동이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아프리카 부족들은 종교적 진화에 있어서 주물숭배 단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집단들은 유일신론을 오랫동안 간직해 오고 있는데, 한 때 트라키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불멸성을 믿었다.

92:6.2 (1010.6) 유란시아에서, 진화 종교와 계시 종교는, 이 글들이 쓰인 시기에 세상에서 발견되는 다양화된 신학 체계들 속으로 혼합되고 밀착되는 동시에,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진보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종교들, 20세기 유란시아의 종교들은 다음과 같이 열거될 수 있을 것이다:

92:6.3 (1011.1) 1. 힌두교—가장 오래되었음

92:6.4 (1011.2) 2. 히브리 종교

92:6.5 (1011.3) 3. 불교

92:6.6 (1011.4) 4. 공자의 가르침

92:6.7 (1011.5) 5. 도교의 신념

92:6.8 (1011.6) 6. 조로아스터교

92:6.9 (1011.7) 7. 신흥교

92:6.10 (1011.8) 8. 자이나교

92:6.11 (1011.9) 9. 그리스도교

92:6.12 (1011.10) 10 이슬람교

92:6.13 (1011.11) 11 시크교—가장 최근

92:6.14 (1011.12) 고대에 있어서 가장 진보된 종교들은 유대교와 힌두교였으며, 그 각각은 동방과 서방에 있어서의 종교 발전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쳐 왔다. 힌두인 들과 히브리인들은 모두 자기들의 종교만이 영감과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믿었으며,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참된 신앙에서 타락한 형태들이라고 믿었다.

92:6.15 (1011.13) 인도는 힌두교와 시크교와 마호멧교 그리고 자이나교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 각각은 하느님과 인간 그리고 우주에 대하여 가지각색으로 이해하여 묘사하고 있다. 중국은 도교와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신교는 일본에서 존경되고 있다.

92:6.16 (1011.14) 국제적인, 여러 종족들이 따르는 위대한 신앙들은 히브리 종교, 불교,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교 등이다. 불교는 실론과 버마로부터 뻗어나가 티베트와 중국을 통하여 일본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그리스도교만이 그에 맞먹을 만한 특성을 보인 것처럼, 많은 민족들의 사회관례에 대한 적응성을 보여 왔다.

92:6.17 (1011.15) 히브리 종교는 다신교(多神敎)에서 유일신교로 바뀌는 철학적 과도기를 보내고 있다; 그것은 진화 종교들과 계시 종교들 사이를 진화적으로 연결해 준다. 히브리인들은, 초기의 진화적인 하느님들을 따르다가 계시의 하느님을 직접 받아들이게 된 유일한 서양 민족이다. 그러나 이 진리는 이사야의 시대 전에는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는데, 그는 우주적 창조자 관념이 섞인 인종적 신(神)을 다시 한 번 가르쳤다. “오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여, 당신만이 유일하신 하느님이시며;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살아남은 서방 문명의 희망은 한 때 선(善)에 대한 숭고한 히브리 개념들과 미(美)에 대한 진보된 헬라 개념들 속에 있었다.

92:6.18 (1011.16)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들과 일생에 관한 종교인데, 유대교 신학에 기초를 두었고, 특정한 조로아스터 가르침들과 그리스 철학에 융화되어 더욱 변경되고, 세 사람들 즉: 필로와 베드로 그리고 바울에 의해

처음으로 조직화되었다. 그것은 바울의 시대 이후로 여러 진화 위상을 거쳐 왔으며 너무도 철저하게 서방화 되었기 때문에 많은 비(非)유럽인 민족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교를 낯선 하느님에 대한 그리고 낯선 자들에 대한 이상한 계시로 간주하였다.

92:6.19 (1011.17) 이슬람은 북아프리카와 레반트 지역 그리고 남동부 아시아의 종교-문화적 연결고리이다. 이슬람을 유일신교로 만든 것은 후대의 그리스도교 가르침들과 관련된 유대교 신학이었다. 모하메드의 추종자들은 삼위일체에 관한 진보된 가르침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들은 세 가지의 신성한 개인성들과 하나의 신(神)에 대한 교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진화적인 마음을 소유한 자들로 하여금 진보되고 계시된 진리를 갑자기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일은 언제나 어려운 것이다. 인간은 진화적인 창조체며 대체적으로 진화적인 기법에 의해서 자기 종교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92:6.20 (1012.1) 조상 경배는 한때 종교 진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진보를 이루도록 기여하였지만, 불교와 힌두교처럼 상대적으로 진보된 종교들 사이에서, 이러한 원시적인

개념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에 그렇게 많이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놀랄고도 그리고 딱한 일이다. 서방에서는 조상경배가 발전하여 민족적인 하느님들에 대한 숭배와 민족적인 영웅들에 대한 존경으로 바뀌었다. 20세기에 이르러서, 영웅을 숭배하는 이러한 국가적 종교는 서방의 여러 종족들과 국가들의 특징을 이루는 여러 가지의 급진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세속주의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의 이와 동일한 태도 역시 영어를 언어로 갖는 민족들의 큰 대학들과 보다 넓은 산업 공동체 속에서 발견된다. 종교가 “함께 추구하는 유익한 삶”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념은 이러한 개념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국가적인 종교들”은 황제를 경배하던 옛 로마인들과 신교—황제 가족에 대한 국가적 경배—로 되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제 7 장. 종교의 계속적인 진화

^{92:7.1 (1012.2)} 종교는 결코 과학적인 사실이 될 수 없다. 철학은 과학적인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종교는 오늘날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 진화적 또는 계시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거나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병합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92:7.2 (1012.3) 새로운 종교는 창안될 수 없다; 그들은 진화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계시된다. 모든 새로운 진화 종교들은 단순히 옛 신념들에 대한 진보된 표현들, 새로운 적응과 조절에 불과하다. 옛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과 융합되는데, 심지어는 시크교조차도 힌두교와 불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다른 동시대적(同時代的) 예배종파들의 토양과 형태들로부터 싹이 텄고 꽃이 피었던 것이다. 원시적인 종교는 매우 민주적이었다; 미개인들은 빌려주기와 빌리기를 잘하였다. 오직 계시된 종교만이 독재적이었고 편협한 신학적 자만심을 갖고 있었다.

92:7.3 (1012.4) 유란시아에 있는 종교들 대부분은 사람을 하느님에게 데려다 주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실현을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데에 모두 다 좋다. 어떤 종교가의 집단이라도 자기들의 교리만이 진리라고 착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한 태도들은 신앙적인 확실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학적인 오만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른 모든 신앙 속에 담겨 있는 최고의 진리들을 유익한 방향으로 연구하고 흡수하지 못할 유란시아 종교는 하나도 없는데, 왜냐하면 모든 종교들이 진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가들은 자기 이웃들의 질질 끌려오는 맹신과 케케묵은 예식에 있는 가장 나쁜 것을 혈뜯기보다는 자기 이웃이 갖고 있는 살아있는 영적 신앙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빌려온다면 아마 훨씬 나아질 것이다.

92:7.4 (1012.5) 이러한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동등한 영적 인도에 대한 그의 다양한 지적 반응의 결과로 발생되어 왔다. 그것들은 교리, 독단론 그리고 예식들의 획일성을 달성할 희망이 전혀 없다.—이들은 지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언젠가는 모든 것들의 아버지께 대한 참된 경배 속에서 합일을 실현할 것이다, 이는 이것이 영적인 것이며, 영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것이 언제까지나 참말이기 때문이다.

92:7.5 (1012.6) 원시적인 종교는 주로 물질적인 가치를 인식하지만; 문명이 종교적 가치들을 증진시켰는데, 왜냐하면 참된 종교는 의미 있고 그리고 최극 가치들의 봉사에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가 진화함에 따라, 윤리는 도덕의 철학이 되고, 도덕성은 최고의 의미들과 최극의 가치들—거룩하고 영적인 이상들—의 기준에 의해서 자아의 단련이 된다. 그리하여

종교는 자발적이고 정교한 헌신, 사랑의 충성심에 대한 살아있는 체험이 된다.

92:7.6 (1013.1) 종교의 본질특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해 나타난다:

92:7.7 (1013.2) 1. 가치에서의 단계—충성심.

92:7.8 (1013.3) 2. 의미의 깊이—이러한 최고의 가치들의 이상주의적인 진가에 대한 개별존재의 민감성.

92:7.9 (1013.4) 3. 헌신의 강도—이러한 신성한 가치들에 대한 헌신의 정도.

92:7.10 (1013.5) 4. 이상주의적인 영적 생활의 이러한 조화우주 경로 속에서 개인성의 속박 받지 않는 진보, 하느님의 아들관계의 실현과 우주 속에서 끝없이 진보하는 시민의 자격.

92:7.11 (1013.6) 종교적인 의미들은 자녀가 전능(全能)함에 대한 자신의 관념을 자기 부모로부터 하느님께로 돌릴 때 자아-의식 속에서 진보를 이룩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의 종교적인 체험 전체는 주로 두려움 또는 사랑 중에 어떤 것이 부모-자식 관계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노예들은 주인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을 하느님-사랑의 개념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항상 체험한다. 문명과 과학 그리고 진보된 종교들은 자연 현상들에 대한 공포심에서 발생한 이러한 두려움들로부터 인류를 구출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서 더욱 확대된 깨우침이, 신(神)과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중간 매개물에 의존하는 모든 현상으로부터 교양 있는 인간들을 구출해 내야만 한다.

92:7.12 (1013.7) 인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신성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숭배를 전환함에 있어서, 우상숭배로 머뭇거리는 이들 중간 단계들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들은 내주 하는 신성한 영의 도와주는 사명활동을 인식함으로써 단축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신(神)에 대한 자신의 개념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가 존경하기로 선택한 영웅들의 성격에 의해서도 깊이 영향을 받아 왔다. 거룩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된 사람들이 그 사람—씩씩하고 용기가 넘치는 그 영웅—요셉의 아들 여호수아—을 놓치고 보지 못했다는 것은 가장 애석한 일이다.

92:7.13 (1013.8)

현대인은 종교에 대해 충분히 자아-의식적이지만, 사회적 변형이 가속화되고 그리고 전례 없는 과학적 발전 때문에 그의 경배 관습은 혼란을 겪고 불신하게 되었다. 생각이 있는 남자와 여자들은 종교가 재(再)규명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종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재(再)-평가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92:7.14 (1013.9)

현대인은 2천 년 동안에 이루어져 왔던 것보다도 더 많이, 인간 가치들에 대한 재조절을 한 세대 동안에 이루어야 하는 과제와 마주쳤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종교를 대하는 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는 종교가 생각하는 기법일 뿐 아니라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92:7.15 (1013.10)

참된 종교는 언제까지나, 한 시기에 그리고 동시에, 지속하고 있는 모든 문명의 영원한 기초이자 안내하는 별이 되어야만 한다.

92:7.16 (1013.11)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93 편 마키벤타 멜기세덱

93:0.1 (1014.1)

멜기세덱들은 응급조치를 위한 아들들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지역우주의 세계들에서 놀랄만한 범위의 활동들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상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든지, 또는 유별난 어떤 것이 시도될 때, 멜기세덱에게 그 일이 배정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있다. 비상사태들의 경우에 그리고 그 우주의 매우 다양한 차원들에서, 심지어는 개인성 현시활동이 물리적인 차원에서도 기능하는 멜기세덱 아들들의 능력은 그들의 계층에만 독특하게 있는 것이다. 오직 생명운반자들만이 개인성 기능의 이러한 변형 범위를 어느 정도 동참할 수 있을 뿐이다.

93:0.2 (1014.2)

우주적인 아들관계인 멜기세덱 계층은 유란시아에서 매우 활동적인 것이었다. 12명의 단체가 생명운반자들과 함께 연관하여 봉사하였다. 후대의 12인 단체는 너희가 사는 세계가 칼리가스티아 때문에 분리된 직후에 그 접수자가 되었고 아담과 이브의 시대가 이를 때까지 계속 권한을 행사하였다. 12명의 이 멜기세덱들은 아담과 이브가 불이행하였을 때 유란시아로 되돌아왔으며, 나사렛 예수가 사람의 아들로써

유란시아의 명목상 행성영주가 된 그 날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로 계속 행성 접수자들로 활동하였다.

제 1 장. 마키벤타의 육신화

93:1.1 (1014.3) 계시된 진리는 유란시아에서의 아담의-임무가 실패한 이후 수천 년 동안 소멸될 위협을 받았다. 지적으로는 진보를 이룩하였지만, 인간 종족들은 영적으로는 서서히 기반을 잃어가고 있었다. 기원 전 약 3,000년경에 하느님에 대한 개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매우 희미하게 성장했었다.

93:1.2 (1014.4) 12명의 멜기세덱 접수자들은 자기들의 행성에 미가엘의 증여가 임박하였음을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빨리 그 일이 발생할 것인지는 알지 못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중대한 협의회를 소집하였고 에덴시아의 지고자에게 진리의 빛을 유란시아에 지속시킬 수 있는 어떤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청원은 "사타니아의 606번에 있는 관련사들의 수행은 멜기세덱 보호관리자들의 손에 충분히 위탁되었다"는 명령과 함께 기각되었다. 그러자 그 접수자들은 아버지 멜기세덱에게 도움을 달라고 호소하였지만, "그 행성의 소유권을 상실된

상태와 불확실한 상태에서 구출하게 될" "증여될 아들이 도래할 때까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한 방법으로 진리를 계속 수호해야만 한다는 말을 전달받았을 뿐이었다.

93:1.3 (1014.5) 그리고 12명의 행성 접수자들 중의 하나인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네바돈의 전체 역사상 6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지구에서 영역의 한 현세적 사람으로 개인성구현하는, 세계적 사명활동에 있어서의 응급조치를 위한 아들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일을 자진해서 하기로 결정한 것은, 너무도 완벽하게 그들 자신의 자원들을 사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모험에 대한 허락이 구원자별의 권한자들에 의해 내려졌고,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실재적인 육신화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살렘이라는 도시가 된 장소 근처에서 이루어졌다. 멜기세덱 아들이 물질화되는 전체 활동행위는 생명운반자들과 특정한 주(主)물리통제자들 그리고 유란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천상(天上)의 개인성들의 협조와 함께 행성 접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제 2 장. 살렘의 현인(賢人)

93:2.1 (1015.1) 마키벤타가 유란시아의 인간 종족들에게 증여된 것은 예수가 태어나기보다 1,973년 전이었다. 그의 출현은 돋보일만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의 물질화 과정은 인간들의 눈에 목격되지 않았다. 그사건 많은 날에 그가 필사 사람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수메르 혈통을 가졌고 갈대아의 양치기인 암돈의 천막으로 그가 들어갔을 때였다. 그리고 그의 임무에 대한 선포는 그가 이 목동에게 하였던, “나는 엘 엘리온, 지고자, 한 분뿐이시며 유일하신 하느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다.”라는 간단한 한 마디 안에 체현되었다.

93:2.2 (1015.2) 놀랐던 그 양치기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리고 그가 이 낯선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퍼부은 후에, 그는 멜기세덱에게 같이 식사를 하자고 권하였으며, 이것은 마키벤타가 자신의 긴 우주 생애 속에서 처음으로 물질적인 음식을 먹은 순간이었고 그 음식물은 물질적인 존재로 있었던 94년 동안의 삶 동안 그를 지탱시켜 주었다.

93:2.3 (1015.3) 그리고 그 날 밤에, 그들이 별 빛 아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멜기세덱은 하느님의 실체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는 자신의 임무를 실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는

자기 손을 털면서 암돈에게 몸을 돌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지고자이신 엘 엘리온은 창공에 있는 별들의 신성한
창조자이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도 지으셨으며,
또한 하늘에 계시는 최극 하느님이시다.”

93:2.4 (1015.4)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멜기세덱은 나중에 살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핵심이 될 학생들과 제자들 그리고
신자들의 한 집단을 자기 주변에 모아들였다. 그는 곧
지고자이신 엘 엘리온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살렘의
현자로 팔레스타인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다. 주변에 있는
부족들 중 일부 부족들 사이에서는 그가 종종 살렘의 왕
또는 족장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살렘은 멜기세덱이
사라진 후에 여부스 족속의 도시가 된 장소였으며, 그
후에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다.

93:2.5 (1015.5) 개인적 외모에서, 멜기세덱은 그 당시의 낫-
사람과 수메르인이 섞인 형태를 닮았는데, 키는 거의
6피트에 달하였고 당당한 현존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갈대아 말을 하였고 6가지의 다른 언어들 구사하였다.
그의 복장은 가나안-사람의 사제들과 거의 흡사하였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대한

사타니아의 상징인 세 개의 동심원 형상을 그의 가슴에 달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사명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세 개의 동심원 모양의 이 표시는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매우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그것은 몇 세대가 지나면서 곧 잊히게 되었다.

93:2.6 (1015.6) 비록 마키벤타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서 살기는 하였지만, 그는 결혼하지 않았고, 이 세상에 자손을 남겨둘 수도 없었다. 그의 육신적인 몸은, 남자의 모습을 닮은 반면, 실체 안에서는 칼리가스티아 영주의 참모진 중에서 물질화 되었던 100명의 요원들에 의해 사용되었던 특별히 구성된 육신들의 계층을 갖고 있었으며, 그것을 제외한다면 인간 종족의 생명 원형질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유란시아에는 생명나무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키벤타가 지구상에 오랜 기간 동안 남아 있었다면, 그의 육체적인 기능구조는 점차적으로 저하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가는, 그는 자신의 물질적 몸에 집대성-해체가 시작되었기 훨씬 전인 94세의 나이에 자신의 증여 임무를 마무리하였다.

93:2.7 (1016.1) 육신화된 이 멜기세덱은, 육신의 조연자이자 시간의 감시자로서 그의 초인간적 개인성에 내주하였던 생각 조절자를 받아들였는데, 조절자는 그리하여 유란시아의 문제들에 대하여 그리고 나중에 하느님의 아들이신 미가엘이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그의 인간 마음속에서 매우 훌륭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던, 육신화된 아들 속에 내주하는 그 기술에 대하여 그 체험과 실천적인 개괄적 해석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이 생각 조절자는 유란시아에서 두 마음 속에서 기능하였던 유일한 조절자였지만, 두 마음은 모두 신성이자 동시에 또한 인간적이었다.

93:2.8 (1016.2) 그 육신 속에 육신화 되어 있는 동안, 마키벤타는 행성 보호관리자 무리단인 11명의 자기 동료들과 충분한 접촉을 이루고 있었지만, 다른 계층의 천상(天上)의 개인성들과는 교통할 수 없었다. 멜기세덱 접수자들을 제외하고는, 인간 이외의 초인간적인 지능 존재들과 더 이상 접촉할 수 없었다.

제 3 장. 멜기세덱의 가르침

93:3.1 (1016.3) 10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멜기세덱은 살렘에 자신의 학교들을 조직하였는데, 두 번째 에덴에 있었던 초기 셋-사람 사제들에 의해 개발되었었던 옛 체계를 본떠서 그것들을 만들었다. 나중에 그에게 귀의한 아브라함에 의해서 처음으로 채용되었던 십일조 체계 역시 고대의 셋-사람들이 버리지 못하고 유지한 전통적 방법에서 유래되었다.

93:3.2 (1016.4) 멜기세덱은 유일하신 하느님, 하나의 우주적 신(神)에 대한 개념을 가르쳤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이 가르침을 자신이 엘 엘리온—지고자—이라고 불렀던 놀라시아텍의 별자리 아버지와 연관시키도록 허용하였다. 멜기세덱은 루시퍼의 상태와 예루셈에서의 관련사들의 상태에 관하여는 거의 침묵을 지켰다. 체계 주권자인 라나휘지는 미가엘의 증여가 완료될 때까지 유란시아에 대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살렘에 있는 학생들 대부분에게 있어서는 에덴시아가 천국이었고 지고자가 하느님이었다.

93:3.3 (1016.5) 멜기세덱이 자신의 증여에 대한 표지로 채택하였던 세 개의 동심원 형상을, 사람들 대부분은

사람들의 왕국, 천사들의 왕국 그리고 하느님의 왕국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신념을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되었는데; 그의 추종자들 중에서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세 개의 원들이 신성한 보존과 지도를 하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무한성과 영원 그리고 보편성에 대한 상징적인 것임을 알았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조차도, 세 지고자들이 하나로 기능한다고 가르침을 받은 것에 따라, 이 형상이 에덴시아의 세 지고자들을 표시하는 상징이라고 생각하였다. 멜기세덱이 삼위일체 개념을 자신의 표지를 통하여 가르친 점에 있어서, 그는 대개 그것을 놀라시아덱의 별자리에 대한 세 명의 보론다덱 통치자들과 연관시켰다.

93:3.4 (1016.6) 자신의 추종자 대열에게 그는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유란시아의 하느님들—의 주권관계의 사실을 넘어서는 가르침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멜기세덱이 깊은 진리를 가르쳤는데, 그 중에는 지역우주의 처리행위와 조직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반면에 가나안 족속이었던 그의 뛰어난 제자 켄-사람 노르단과 일단(團)의 진지한

학생들에게는 초우주와 하보나까지 포함하여 진리를 가르쳤다.

93:3.5 (1016.7) 멜기세덱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이 살았던 카트로 집안의 가족들은 이러한 높은 진리들 대부분을 알았으며 자기 가족들 안에 오랫동안 간직하였는데, 그들의 걸출한 후손인 모세의 시대까지도 유지하였고, 그리하여 그는 멜기세덱 시대의 활기에 넘치는 전통을 아버지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혈통에서도 다른 근원들을 통하여 전해 받았다.

93:3.6 (1016.8) 멜기세덱은 자기 추종자들이 받아들여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가르쳤다. 심지어는 하늘과 땅에 관한, 사람과 하느님과 천사들에 관한 현대 종교들의 관념들 대부분도 이러한 멜기세덱의 가르침들로부터 크게 멀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위대한 이 선생은 유일하신 하느님, 하나의 우주적인 신(神), 하늘에 계신 한 분의 창조자, 한 분뿐이신 신성한 아버지께 대한 교리에 모든 것들을 종속시켰다. 동일한 이 우주 아버지의 아들이자 미가엘이 나중에 출현하기 위한 그

길을 준비하는 그리고 사람의 갈망을 유도하는 목적을 위하여 이 가르침의 강조점을 두었다.

93:3.7 (1017.1) 멜기세덱은 자신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어느 날에 다른 하느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도래할 것이지만, 그는 한 여인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그로 인하여 수많은 후대의 선생들은 예수가 하나의 사제 또는 성직자, “멜기세덱의 계층을 언제까지나 따르는 자”였다고 굳게 믿었다.

93:3.8 (1017.2) 그리하여 멜기세덱은 그 길을 예비하였고, 유일하신 하느님의 실재적인 파라다이스 아들의 증여를 위해 세계적인 경향이 유일신 론으로 흐르는 무대를 설치하였는데, 그는 그를 모든 존재의 아버지로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였고, 아브라함에게는 개인적인 신앙의 단순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사람을 용납하시고자 하는 하느님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미가엘은, 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멜기세덱이 파라다이스 아버지에 관하여 가르쳤던 모든 것을 확증하셨다.

제 4 장. 살렘의 종교

93:4.1 (1017.3) 살렘에서 행해진 경배 형태는 매우 단순하였다. 멜기세덱 교회의 진흥으로 만든 명부에 서명하거나 표시한 각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신조를 암기하고 동의하였다:

93:4.2 (1017.4) 1. 나는 지고자 하느님이시고, 유일하신 우주 아버지이시며 모든 것들의 창조자이신 엘 엘리온을 믿는다.

93:4.3 (1017.5) 2. 나는 희생 제물과 불에 태운 제물 위예가 아니라 나의 신앙 위에 하느님의 은혜를 내려주는 지고자와의 멜기세덱 서약을 받아들인다.

93:4.4 (1017.6) 3. 나는 멜기세덱의 일곱 계명에 복종할 것과, 지고자와 맺은 이 서약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것을 약속한다.

93:4.5 (1017.7) 그리고 그것이 살렘 거류민단의 전체 신조였다. 그러나 그러한 짧고도 단순한 신앙의 선언조차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앞선 것이었다. 그들은 아무 것도 제공하지 않고—신앙에 의해—신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념을 이해할 수 없었을 뿐이다. 그들은 사람이

하느님들에게 몰수 처분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믿음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그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도 진지하게 사제들에게 희생제물과 선물을 제공했기 때문에, 구원, 신성한 은혜가 멜기세덱 서약을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어진다는 복된 소식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반신반의하면서 믿었는데, 그런 것 까지도 “정의로움으로 여겨졌다”.

93:4.6 (1017.8) 멜기세덱에 의해서 공포되었던 일곱 계명들은 고대의 달라마시아 최극 법 계통을 본떠서 만들어졌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에덴에서 가르쳤던 일곱 가지 명령들과도 매우 흡사하였다. 살렘 종교의 이 명령들은 다음과 같다:

93:4.7 (1017.9) 1. 하늘과 땅을 지으신 지고자 창조자 외에는 어떤 하느님도 섬기지 마라.

93:4.8 (1017.10) 2. 영원한 구원을 위해 오직 신앙만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라.

93:4.9 (1017.11) 3.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3:4.10 (1017.12) 4. 살인하지 마라.

93:4.11 (1017.13) 5. 흠치지 마라.

93:4.12 (1018.1) 6. 간음하지 마라.

93:4.13 (1018.2) 7. 너희 부모와 어른들을 경멸하지 마라.

93:4.14 (1018.3) 그 거류민단 안에서는 어떤 희생제물도 허용되지 않은 반면, 멜기세덱은 오랜 세월 동안 수립되어 온 관습들을 갑자기 뿌리 뽑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았으며, 따라서 살과 피를 희생제물로 제공하던 옛 방법 대신에 빵과 포도주로 하는 성례로 대치하도록 이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제시하였었다.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중한 혁신조차도 전혀 성공하지 못하였다; 여러 부족들은 모두 살렘 외곽 지역에 보조 중심지들을 유지하면서 그 곳에서 희생제물과 불에 태우는 헌정을 제공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크돌라오멜을 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이러한 야만적인 실천 관행에 의지하였다; 그는 전통적인 희생제물을 바칠 때까지는 전혀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자신의 추종자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종교적 실천 관행으로부터도,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이러한 성향을 충분히 제거하지는 못하였다.

93:4.15 (1018.4) 예수와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은 자신이 증여된 임무의 완수에 철저하게 몰두하였다. 그는 사회관례를 재구성하거나 세상의 습관들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진보된 위생적 실천 관행들이나 과학적 진리들도 세상에 제공하지 않았다. 그가 온 것은 두 가지 임무를 성취하기 위해서였는데: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진리를 이 세상에서 계속 살리는 것과 우주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아들이 나중에 필사 존재로 증여되게 하기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93:4.16 (1018.5) 멜기세덱은 94년 동안 기본적으로 계시된 진리를 살렘에서 가르쳤으며,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세 차례에 걸쳐서 살렘 학교에 참여하였다. 마침내 그는 전향하여 살렘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이었고, 멜기세덱의 학생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 중의 하나가 되었고 우두머리 후원자가 되었다.

제 5 장. 아브라함의 선택

93:5.1 (1018.6)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수겠지만,

아브라함이 선택된 한 개별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오류가 아니다. 멜기세덱은 복수(複數)의 신(神)들을 믿는 우세한 신앙과는 현저히 다른,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진리를 계속 살리는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맡겼다.

93:5.2 (1018.7) 멜기세덱의 활동 장소로 팔레스타인이 선택된

것은, 부분적으로는 영도자관계가 될 만한 가능성을 체현하고 있는 어떤 인간 가족과 접촉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멜기세덱이 육신화 되었을 당시에 지구상에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러했던 것처럼 살렘의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잘 준비된 가족들이 많이 있었다. 적색 인종들과 황색 인종들 그리고 서부와 북부에 있는 안드-사람 후손들 속에는 동등하게 자질로서 부여받은 가족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장소들 중에 어떤 곳도 나중에 미가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 지중해의 동부 해안보다 더 알맞은 장소는 없었다. 팔레스타인에서 임무를 수행한 멜기세덱과 나중에 히브리 민족 속에서 출현한 미가엘의 경우에 지리적인 요소로 인해, 그 당시에 있었던 세계의 무역과 교통 그리고 문명의 면을 고려할 때 팔레스타인이

중심적인 위치라는 사실 때문에 결정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93:5.3 (1018.8) 멜기세덱 접수자들은 아브라함의 조상들을 한동안 관찰한 바 있었으며, 그들은 어떤 특정한 세대가운데에서 지적이고 창의적이며 총명성 그리고 성실성으로 특징 지워지는 인물이 출현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테라의 자녀들이 모든 면에서 이러한 기대에 일치하였다. 마키벤타가 이집트, 중국, 인도, 또는 북쪽에 있는 부족들 속에서 출현하기보다 살렘에서 출현하였던 상당한 이유는 테라의 이러한 다재다능한 자녀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93:5.4 (1019.1) 테라와 그의 전체 가족은 살렘 종교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전향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종교는 이미 갈대아에 전파되어 있었다; 그들은 우르에서 살렘 교리들을 선포하는 페니키아인 선생인 오비드의 설교를 통하여 멜기세덱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직접 살렘으로 가려고 우르를 떠났지만, 멜기세덱을 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하란에 머물자고 권유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가지고 나왔던 가신(家神)들을 모두 기꺼이 파괴하기 전에 팔레스타인에 도달할 때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으며; 그들은 유일하신 살렘의 하느님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하느님들을 포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93:5.5 (1019.2)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테라가 죽은 지 몇 주일이 지난 후에, 멜기세덱은 자기 학생 중의 하나인 히타이트-사람 야람을 보내어 아브라함과 나홀을 다음과 같이 초청하였다: “살렘으로 오면 당신들은 영원하신 창조자에 관한 우리의 진리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으며, 당신들 두 형제들로부터 태어나는 깨우친 자손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요.” 이 때 나홀은 멜기세덱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뒤에 남아서 자기 이름을 딴 강력한 도시국가를 건립하였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자기 삼촌과 함께 살렘에 가기로 결심하였다.

93:5.6 (1019.3) 살렘에 도착하자, 아브라함과 롯은 북쪽의 침입자들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 도시 근처에 있는 가파른 요새를 선정하였다. 이 당시에 히타이트-

사람과 아시리아 족속과 필리스틴 족속 그리고 다른 여러 집단들이 팔레스타인 중부와 남부에 있는 부족들을 계속하여 침입하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롯은 언덕에 있는 요새로부터 자주 살렘으로 순례여행을 하였다.

93:5.7 (1019.4) 그들이 살렘 근처에 근거지를 마련한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팔레스타인에 가뭄이 심하였으므로 아브라함과 롯은 음식 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나일 계곡으로 여행하였다. 이집트에서의 이 짧은 여행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먼 친족이 이집트의 왕좌에 앉아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그는 이 왕을 위해 두 차례의 원정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나일에서 그가 머물렀던 후반기 동안에, 그와 그의 아내 사라는 대저택에서 살았으며, 이집트를 떠날 때에는 그의 군사 원정에서 획득한 전리품들의 몫을 받았다.

93:5.8 (1019.5) 이집트의 대저택에서 사는 명예를 버리고 마키벤타에 의해 후원되는 더욱 영적인 일로 돌아가는 일은 아브라함의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이집트에서도 존경을 받고 있었으며, 모든 이야기가 파라오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살렘의 운동에

대한 그의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돌아가야 한다고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권하였다.

93:5.9 (1019.6) 아브라함은 왕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었으며, 이집트에서 돌아가는 도중에,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고 그 민족을 살렘의 통치를 받게 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롯에게 이야기하였다. 롯은 사업에 더 관심이
많았으며, 그래서 나중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 상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소돔으로 가버렸다. 롯은
군인이 되는 것을 싫어하였으며 목자의 생활도 좋아하지
않았다.

93:5.10 (1019.7) 자기 가족과 함께 살렘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사적인 계획들을 성사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는 곧 살렘 지역에서 시민 통치자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근처에 있는 일곱 개의 부족들을 자기
지휘권 밑으로 동맹국을 형성하였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류하는 것은 정말로 매우 힘든 일이었는데,
그는 앞으로 나가 인근에 있는 부족들을 강제로 끌어
모아서 그들에게 살렘의 진리들을 더 빨리 알게 하려는
열정으로 불이 붙어 있었다.

93:5.11 (1019.8)

멜기세덱은 주변의 부족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였다; 싸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무리들이 앞뒤로 이동할 때에도 전혀 공격을 받지 않았다. 그는 나중에 효과를 나타낸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렘을 위하여 방어적인 정책을 형성하게 되기를 전적으로 원하였지만, 정복을 위한 자기 제자의 야심적인 계획은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우호적으로 친구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었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사 중심지를 수립하기 위하여 헤브론으로 건너갔다.

93:5.12 (1020.1)

저명한 멜기세덱과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변에 있는 소규모의 왕들보다 매우 큰 장점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멜기세덱을 존경하였고 아브라함을 과도할 정도로 두려워하였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두려움을 알고 있었고, 자기 이웃들을 공격할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러한 구실을 찾게 된 것은 소돔에서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의 재산을 이 통치자들 중의 일부가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 때였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되자, 7개 동맹 부족들의 수장인 아브라함은 적을 추격하였다. 그의 호위병 318명이 그 무리를

지휘하였는데, 이 때 공격에 가담한 숫자는 4,000명이 넘었다.

93:5.13 (1020.2) 아브라함이 전쟁을 선포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멜기세덱이 그를 설득하려고 달려갔지만, 전쟁터에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전에 자기 제자였던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뿐이었다. 아브라함은 살렘의 하느님이 자신의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자신의 탈취물 중에서 10분의 1을 살렘의 재정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집하였다. 그 나머지 90퍼센트는 헤브론에 있는 자신의 중심지로 옮겨갔다.

93:5.14 (1020.3) 싯딤에서의 이 전쟁이 있는 후에, 아브라함은 11개 부족들로 구성된 두 번째 동맹국의 영도자가 되었으며,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부족들도 똑같이 하게 시켰다. 소돔 왕과 맺은 그의 외교적인 거래는, 그에 대한 매우 일반적인 두려움과 함께, 소돔 왕과 다른 왕들로 하여금 헤브론 군사 동맹에 가담하게 만들었다;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에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는 일을 실제로 순조롭게 이루어가고 있었다.

제 6 장. 아브라함과 맺은 멜기세덱의 계약

93:6.1 (1020.4) 아브라함은 가나안 전체의 정복을 꿈꾸었다. 그의 계획을 유일하게 약화시킨 것은 멜기세덱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계획을 막 실행하려고 하였을 때, 예상되는 이 왕국의 통치자로서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생각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는 멜기세덱과의 회담을 다시 주선하였다; 눈에 보이는 하느님의 아들인 살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여 하늘의 왕국의 영적 개념을 위하여 물질적인 정복에 대한 그의 계획과 현세적인 통치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 회담 과정에서였다.

93:6.2 (1020.5) 멜기세덱은 아모라이트 동맹과 싸우는 것이 무익함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발달되지 못한 씨족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은 실천 관행들에 의해 자멸될 것이 분명하므로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너무도 약하게 되어 그 동안에 엄청나게 증가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쉽게 그들을 정복하게 되리라는 것도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93:6.3 (1020.6)

그리고 멜기세덱은 살렘에서 아브라함과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제 저 하늘들을 쳐다보고, 할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네 자손이 그렇게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믿었고, “그것이 그의 정의로움으로 간주되었다”. 그 후에 멜기세덱은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머문 후에 그들에 의해서 장차 가나안이 정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였다.

93:6.4 (1020.7)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 계약은 하느님께서 그것에 의해 모든 것을 하시기로 동의하시는 신성(神性)과 인간성 사이의 위대한 유란시아 계약을 대표한다; 사람은 오직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지시를 따르기로 동의할 뿐이다. 그 전에는 구원이 오직 행위—희생 제물과 헌물—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믿어 왔었다; 이제는 멜기세덱이 구원, 하느님의 은혜가 신앙에 의해서 획득된다는 복된 소식을 다시 유란시아에 전하였다. 그러나 하느님을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복음은 너무 앞선 것이었다; 셈족의 부족민들은 그 후에, 피를 뿌림으로써 죄 값을 갚는 일과 옛날의 희생 제물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더 좋아하였다.

93:6.5 (1021.1)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멜기세덱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 이삭이 태어난 후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과 맺은 계약에 대해 매우 진지한 태도를 가졌으며, 그것을 문서화하기 위하여 살렘으로 건너갔다. 그가 자기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은, 그 계약에 대해 공개적이고도 공식적으로 수락한 이 때였다.

93:6.6 (1021.2) 살렘 종교를 믿는 자들 대부분이 이미 할례를 실천하였었지만, 그것은 멜기세덱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요구된 것이 아니었다. 이 때 아브라함은 늘 할례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그는 살렘 계약을 비준한다는 표시로 이 예식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건을 엄숙하게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93:6.7 (1021.3) 멜기세덱의 더 큰 계획을 위하여 그의 개인적인 야망을 실제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굴복시킨 이 일에 뒤따라서, 세 명의 천상(天上)의 존재들이 마르레 평원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의 자연적인 파괴와 관련시켜서 나중에 합성된 이야기가

꾸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로 나타난 일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 전설은 도덕과 윤리가 최근까지도 얼마나 뒤떨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93:6.8 (1021.4) 엄숙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사이의 화해가 완성되었다. 아브라함은 살렘 거류민단의 시민적인 지도권과 군사적인 지도권을 다시 행사하게 되었는데, 전성기에는 멜기세덱 형제회의 명부에 실린 정기적으로 십일조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0만 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살렘의 성전을 크게 개량하였으며 모든 학교에 새로운 천막을 제공하였다. 그는 십일조 체계를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선된 많은 방법들을 제정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도 선교사를 통한 선전 방법을 더 잘 운용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그는 살렘의 낙농업 사업과 목축업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일에도 많은 일을 하였다. 아브라함은 기민하고도 유능한 사업가, 당대의 큰 부자였으며; 지나칠 정도로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철저히 진지하였고, 마키벤타 멜기세덱을 굳게 믿었다.

제 7 장. 멜기세덱 선교사들

93:7.1 (1021.5) 멜기세덱은 자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살렘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여러 해 동안 계속하였는데, 그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들에게로 퍼져 나갔으며, 특별히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소아시아로 들어갔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가자, 이 선생들은 살렘으로부터 더욱 먼 지역으로 이동해 갔으며,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마키벤타 복음을 소유하고 있었다.

93:7.2 (1021.6) 반의 호숫가에 군(群)을 이루었던 아담아들의 후손들은 살렘 예배종파의 히타이트 선생들의 가르침을 기꺼이 듣고자 하였다. 한 때 안드-사람의 중심지였던 이곳으로부터, 여러 선생들이 유럽과 아시아의 먼 지역으로 보내졌다. 살렘 선교사들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 들어갔고, 심지어는 영국 섬들에도 이르렀다. 어떤 집단은 페로 제도(諸島)를 경유하여 아이슬란드의 안드-사람들에게로 갔고, 또 어떤 집단은 중국을 건너 동쪽 섬에 있는 일본인에게로 갔다. 동반구에 있는 부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살렘과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반 호수로부터 생명을 내걸고 전진하였던 남녀 사람들의

삶과 체험은, 인간 종족의 연대기(年代記)에 있어서
영웅적인 부분을 이룩하였다.

93:7.3 (1022.1) 그러나 그 임무는 너무 힘든 것이었고 그 부족들은
너무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미미하고 명확치
않았다. 세대가 바뀌면서 살렘 복음의 거점이 여기저기에
형성되었지만, 팔레스타인은 예외적이었는데, 한 분
하느님에 대한 관념이 전체 부족 또는 종족의 지속적인
충성을 얻을 수가 없었다. 예수의 도래 훨씬 전에, 살렘
선교사들의 가르침들은 대개 옛날의 더욱 보편적인
미신과 신념들 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기원의 멜기세덱
복음은 대모(大母) 숭배와 태양 숭배 그리고 다른 고대의
예배종파들을 믿는 신앙들 속으로 이미 거의 전적으로
흡수되어 버렸다.

93:7.4 (1022.2) 인쇄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오늘날의 너희는
이러한 초기 시대 동안에 진리를 영속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거의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세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교리에 대한 견해를 잃어버리기가
얼마나 쉬웠는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교리가
옛날의 종교적인 가르침과 마술적 실천 관행의 본체

속으로 흡수되어 버리는 경향이 항상 존재하였다. 새로운 계시는 항상 옛날의 진화적인 신념들에 의해서 오염되게 마련이다.

제 8 장. 멜기세덱이 떠남

93:8.1 (1022.3) 멜기세덱이 유란시아에서의 자신의 응급 대책의 증여를 끝내기로 결정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직후였다. 멜기세덱이 육신 안에서의 자신의 임시 거주를 종결짓기로 결정하도록 영향을 준 요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가까운 연관-동료들까지도 그를 반신반인으로 간주하고 초인간적인 존재로 보려는 경향이 자라나고 있었는데, 정말로 그가 그런 존재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지나치게 그리고 아주 미신적인 두려움으로 그를 존경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유들 외에도, 멜기세덱은 오직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개념이 자신의 추종자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활동 무대를 떠나고자 하였다. 따라서 마키벤타는 어느 날 밤 자기 인간 동행자들에게 취침

인사를 하면서 살렘에 있는 자기 천막으로 물러갔으며,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이 그를 부르러 갔을 때에는, 그가 거기에 없었는데, 그의 연관-동료들이 그를 이미 데려갔기 때문이었다.

제 9 장. 멜기세덱이 떠난 이후

93:9.1 (1022.4) 멜기세덱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험이었다. 비록 자기가 왔던 그대로 어느 날 떠나게 될 것이라고 그가 동료들에게 이미 충분히 경고하였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경이로운 영도자를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온 것에서 세운 것이 이 시대의 전통이긴 하였지만, 살렘에 세워졌던 그 위대한 조직체는 거의 사라졌다.

93:9.2 (1022.5) 멜기세덱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 아브라함의 가슴속에 가득하였으며 충분히 극복할 수가 없었다. 그는 물질적인 왕국을 세우겠다는 야망을 포기하였을 때 이미 헤브론을 포기하였다; 이제는 영적인 왕국을 세움에 있어서 자신의 연관-동료를 잃게 되자, 그는 살렘을

떠났고, 길갈에 있는 자기 동반자들 근처에서 살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갔다.

93:9.3 (1022.6) 멜기세덱이 사라지자마자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고 소심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길갈에 도착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숨겼고, 그리하여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를 가로채었다. (사라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아브라함은 어느 날 밤 그의 찬란한 아내를 가지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음모를 우연히 엿들었다. 이것 이외에는 용감하고 대담한 그 영도자에게 이 두려움은 공포가 되었다; 그의 모든 삶에서 그는 누군가가 사라를 취하기 위하여 자기를 은밀하게 죽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다. 그리고 이것이 어째서, 따로따로 있었던 세 번의 사건에서, 이 용감한 남자가 실제 겁쟁이처럼 드러내 보였는지를 설명한다.)

93:9.4 (1023.1) 그러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후계자로서의 자기 임무를 오래 지나지 않아서 다시 시작하였다. 그는 곧 필리스틴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민족 중에서 개종자들이 생겨나게 하였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으며, 역으로 그들의 많은 미신들에 의해서 특별히 첫 태생의 아들들을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그들의 실천 관행에 의해서 오염되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에서 다시 큰 영도자가 되었다. 그는 모든 집단들로부터 숭배를 받았고 모든 왕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는 모든 이웃 부족들의 영적인 영도자였으며, 그의 영향력은 그가 죽은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동안에 한 번 더 헤브론으로 돌아갔었는데, 그곳은 그의 초기 활동무대였으며 멜기세덱과 관계적-연합하여 활동하였던 장소였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작업은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로 자신의 원래 민족들 중에서 한 여인을 확실하게 얻기 위하여 메소포타미아 접경에 있는 자기 형제 나홀의 성읍으로 믿을만한 하인들을 보낸 것이었다. 자기 사촌들과 결혼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민족의 오래된 관습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진 살렘의 학교들에서 멜기세덱으로부터 배웠던 하느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죽었다.

93:9.5 (1023.2) 그 다음 세대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5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신화로 여기게 되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가르침들을 아주 잘

파악하였고 살렘 거류민단의 복음을 잘 보호하였지만, 이 전승들의 의의(意義)를 이해하는 것이 야곱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요셉은 멜기세덱을 굳게 믿었고 주로 이 이유 때문에 그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몽상가로 취급되었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명예를 얻은 것은 주로 그의 증조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다. 요셉은 이집트 무리의 군사 지휘관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멜기세덱에 대한 전승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대의 가르침들을 그토록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정부 행정-관리자로 일하도록 선택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가 하늘의 왕국의 확장을 위하여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93:9.6 (1023.3) 멜기세덱의 가르침은 충만하고도 충분한 것이었지만, 이 시대의 기록들은 후대의 히브리 사제들에게 불가능하고 공상적인 일로 보였으나, 적어도 바빌로니아에서 구약 성경 기록들이 한 묶음으로 편집되던 시기까지는 이들 활동행위들을 납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93:9.7 (1023.4) 구약 성경의 기록이 아브라함과 하느님 사이의 대화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실체 안에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사이에 협의된 것이었다. 후대의 서기관들은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를 하느님의 동의어로 간주하였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님의 천사”와 매우 여러 번 접촉하였다는 기록은 그들이 수없이 많이 멜기세덱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는 것이다.

93:9.8 (1023.5)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대한 히브리 전승들은 아브라함에 관한 것들보다는 훨씬 더 믿을만한 것이지만, 그것들도 역시 사실들로부터 많은 전환들을 담고 있는데, 바빌로니아 포로기 동안에 히브리 사제들에 의해 이 기록들이 편집될 때 고의적으로 또는 부지불식간에 변경되었다. 케두라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었다; 하갈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첩에 불과하였다. 아브라함의 재산은 모두 본처(本妻) 사라의 아들인 이삭이 물려받았다. 아브라함은 그 기록들이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으며, 그의 아내는 훨씬 더 어렸다. 이 나이들은 나중에 이삭이 기적적으로 출생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변경된 것이었다.

93:9.9 (1023.6) 유대인들의 민족적 자기 정체성은 바빌로니아에 포로가 됨으로써 엄청나게 약화되었다. 민족적인 열등감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들은 다른 쪽의 극단적인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이기주의로 몰려갔으며, 그 속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느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모든 인종들보다 우위에 서도록 고양시키는 관점에서 자기들의 전승들을 왜곡시키고 오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브라함을 위시하여 자신들의 다른 민족적 영도자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우위에 두려는 목적으로 자신들의 모든 기록들을 세심하게 변경시켰으며, 멜기세덱 자신에 관한 것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히브리 서기관들은 이들 중요한 시기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대로 모두 파괴시켰으며, 그들이 보기에 아브라함에게 큰 명예가 초래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싯딤 전투 이후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만을 남겨두었다.

93:9.10 (1024.1) 그리하여 멜기세덱을 잊게 되면서, 그들은 또한 약속된 증여 아들의 영적 임무에 관한 이 비상 대책 아들의 가르침도 잊게 되었다; 이 임무의 본질에 대한 망각이 너무도 충만하고 완벽하였기 때문에, 마키벤타가

예언하였던 대로 그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출현하였을 때 그들의 자손들 중에서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미가엘을 기꺼이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93:9.11 (1024.2)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들 중의 한 사람이 멜기세덱의 임무를 납득하였는데,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지고자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은 또한 평화의 왕이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삶의 시작도 끝도 없지만 하느님의 아들과 같이 되었고, 계속하여 제사장으로 남아 있다.” 이 기자(記者)는 멜기세덱을 나중에 증여된 미가엘의 모형으로 삼았으며, 예수가 “언제까지나 멜기세덱의 계층을 따르는 성직자”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비교가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지만, 미가엘이 자신의 세계에 증여된 시기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12명의 멜기세덱 접수자들의 계층들에 따라서” 유란시아에 대한 잠정적 권리를 받았던 것은 글자 그대로 사실이였다.

제 10 장.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현재 지위

93:10.1 (1024.3) 마키벤타가 육신화 되어 있던 여러 해의 기간 동안 유란시아의 멜기세덱 접수자들은 11명으로

활동하였다. 마키벤타가 비상 대책 아들이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완결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때, 그는 이러한 사실을 11명의 자기 연관-동료들에게 알렸으며, 그들은 그가 육체로부터 분리되어서 그의 기원적 멜기세덱 지위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는 기법을 즉시 준비하였다. 그리고 그가 살렘으로부터 사라진 후 3일째 되던 날에 그는 유란시아를 양도받은 11명의 자기 연관-동료들 사이에 나타났고 사타니아의 606번에 대한 행성 접수자들의 하나로서 자신의 단절되었던 업무를 재개하였다.

93:10.2 (1024.4) 마키벤타는 그가 시작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그리고 아무런 형식 없이, 육체를 갖는 창조체로서의 증여를 종결지었다. 그의 출현뿐만 아니라 사라짐도 아무런 비상한 공표나 실증이 없이 이루어졌으며; 부활의 역사도 행성 섭리시대의 종결도 유란시아에서의 그의 출현을 현저하게 나타내지 않았다; 그의 출현은 비상 대책의 증여였다. 그러나 마키벤타는 자신이 아버지 멜기세덱에 의해 정식으로 해제될 때까지 그리고 자신의 비상 대책 증여가 네바돈의 우두머리 집행자인 구원자별의 가브리엘로부터 허락을 받아들일 때까지 인간 존재의 육신 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93:10.3 (1024.5) 마키벤타 멜기세덱은 자기가 육신 속에 있었을 때 자기 가르침들을 믿었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의 관련사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켄-사람들과 서로 결혼을 하면서 살렘 교훈의 어떤 분명한 개념을 오랫동안 계속 보존하였던 유일한 혈통이었다.

93:10.4 (1024.6) 바로 이 멜기세덱이 계속되는 19개의 세기들 동안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예언자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계속 일하였으며, 그렇게 하여 미가엘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시기까지 살렘의 진리들을 계속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93:10.5 (1025.1) 마키벤타는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승리하는 시간까지 계속 행성 접수자로 남아 있었다. 그 후에 그는 예루셈에서의 유란시아 봉사에 24명의 관리자들 중의 하나로 임명되었으며, 아주 최근에 이르러서야 예루셈에서의 창조자 아들의 개인적인 대사 자격으로 승격되었는데, 유란시아의 대리 행성영주의 직함을 갖고 있다. 우리가 믿기로는, 유란시아가 사람이 사는 행성으로 남아 있는 한, 마키벤타 멜기세덱은 자신의 아들관계 계층의 임무로 충분히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을 것이며,

시간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언제까지나 그리스도 미가엘을 대표하는 행성 대리자가 될 것이다.

93:10.6 (1025.2) 유란시아에 대한 그의 증여가 비상 대책의 것이었듯이, 마키벤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네바돈의 멜기세덱 무리단은 그들 숫자 중의 하나를 영원히 손실된 상태로 계속 지속되어 나타날 것이다. 에덴시아의 지고자들로부터 전해진 최근의 판결문들과 유버사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나중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타락한 행성영주 칼리가스티아의 자리를, 증여되었던 이 멜기세덱이 대신하게 될 것임이 강력하게 시사되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기대에 대한 우리의 추측이 정확하다면,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유란시아에 다시 직접 나타나서 어떤 변경된 방법으로 폐워된 행성영주 직책을 재개하거나, 아니면 현재 유란시아의 행성영주 직함을 실재적으로 갖고 계시는 그리스도 미가엘을 대신하여 대리 행성영주로 활동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키벤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로 본다면 앞에 말한 추측이 진실과 멀지 않다는 견해가 강력하게 제기된다.

93:10.7 (1025.3) 우리는 유란시아에서의 미가엘의 승리에 의해 어떻게 그가 칼리가스티아와 아담의 계승자가 되었는지를 이제 잘 납득하고 있다; 그가 어떻게 하여 행성 평화의 영주와 두 번째 아담이 되었는지를 잘 이해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멜기세덱에게 유란시아의 대리 행성영주의 직함이 수여될 것을 기대한다. 그가 또한 유란시아의 대리 물질아들로도 임명될 것인가? 아니면 예기치 못하였던 그리고 전례가 없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언젠가 아담과 이브가 그 행성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후손이 미가엘의 대리자로서 유란시아의 두 번째 아담의 대리자 직함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을까?

93:10.8 (1025.4) 그리고 이러한 치안법관 아들 그리고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 둘 모두 장차 출현할 것에 대한 확실성과 관계되는 이러한 모든 추측들은, 창조자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명백한 약속과 함께, 유란시아를 네바돈의 전체 우주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호기심을

자아내는 구체들 중의 하나가 되게 하며 미래의 불확실한
행성으로 만든다. 유란시아가 빛과 생명의 시대에 가까이
도달하는 미래의 어떤 시기에, 루시퍼 반란과
칼리가스티아 분리에 관한 관련사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후에, 마키벤타와 아담과 이브 그리고
미가엘 그리스도 또한 치안법관 아들 또는 심지어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이 동시에 유란시아에 현존함을
우리가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93:10.9 (1025.5) 24명의 조연자들인, 유란시아 관리자들로 구성된
예루셈 무리단에 마키벤타의 현존은 그가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을 따라서 우주의 진보 계획에 참여하고
파라다이스 최종의 무리단으로까지도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견해가 우리
계층 속에서 오랫동안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우리는
유란시아가 빛과 생명의 상태 속에 정착되게 될 때, 아담과
이브가 자신들의 땅에서의 동료들과 함께 파라다이스
모험여행에 동행하도록 그렇게 운명이 정해졌음을 알고
있다.

93:10.10 (1025.6) 불과 1,000년 전에, 한 때 살렘의 현자였던 바로 이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유란시아에 나타나, 100년 기간 동안 행성의 거주총독으로 활동하였다; 만약에 행성의 관련사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금의 체계가 계속된다면, 약 1,000년이 조금 지나서 동일한 수용능력으로 마땅히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93:10.11 (1026.1) 이것이 유란시아 역사에 관련되게 되었던 모든 성격들 중에서 가장 독특한 존재들 중의 하나이며, 너희의 불규칙적이고 유별난 세계의 미래 체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개인성인 마키벤타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이다.

93:10.12 (1026.1)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94 편 동양에서의 멜기세덱 가르침

94:0.1 (1027.1) 신성한 은혜를 얻기 위한 유일한 대가는 한 분뿐이신 하느님에 대한 사람의 신앙과 신뢰라는 마키벤타의 복음을 계속 전도하는 살렘 종교의 초기 선생들이 아프리카와 유라시아의 가장 먼 부족들에게로 스며들었다. 멜기세덱의 아브라함과의 서약은 살렘과 다른 중심지들로부터 퍼져나가는 초기의 모든 선전

운동의 원형들이었다. 유란시아는 동반구(東半球) 전체에서 멜기세덱의 가르침을 전하였던 이 고귀한 남녀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종교의 선교사들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 이 선교사들은 여러 민족들과 인종들로부터 모집되었으며, 주로 자기 나라의 개종자들을 매개로 하여 가르침들을 전파하였다. 그들은 세계의 서로 다른 여러 지역에 훈련 중심지들을 설립하였고 그곳에서 그들은 원주민들에게 살렘 종교를 가르친 후에 이 제자들이 각자 자기 민족 속에서 선생으로 활동하도록 임명하였다.

제 1 장. 베다 인도에서의 살렘의 가르침

94:1.1 (1027.2) 멜기세덱의 시대에, 인도는 최근에 북서쪽으로부터 침입한 아리안-안드-사람의 정치적 종교적 통치 아래에 들어오게 된 세계주의의 국가였다. 이 당시에 반도(半島)의 북부와 서부만이 아리아 족속들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점령되어 있었다. 이 베다의 새로운 이주자들은 그들의 많은 부족 신(神)들을 가져왔다. 그들의 경배의 종교적 형태들은 아버지가 여전히 사제(司祭) 기능을 담당하고 어머니는 여자 사제의 역할을 하였으며, 가정의 화로(火爐)가 아직도 하나의 제단으로

사용되던 그들의 옛 안드-사람 조상들의 의식적인 실천 관행들과 거의 다름이 없었다.

94:1.2 (1027.3) 베다 예배종파는 그 때에 확대되는 경배 예식에 대하여 점점 더 통제를 장악해가고 있던 선생-사제인 브라만 특권계급의 지도 아래에서 성장과 변형의 과정에 있었다. 살렘 선교사들이 인도의 북부 지역에 들어갔을 때, 한 때 33개에 달하였던 아리아족 신(神)들의 합병이 잘 진행되고 있었다.

94:1.3 (1027.4) 이들 아리아족들의 다신론은 부족 단위로, 각각의 부족이 그들이 숭배하는 하느님을 가지는, 그들의 분리에 의하여 야기된 그들의 초기 유일신 론의 타락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기원에서의 유일신 론의 이러한 퇴화와 메소포타미아 안드-사람의 삼위일체론은 그리스도 이전 두 번째 1,000년기의 초기 세기들에 재합성의 과정에 있었다. 많은 하느님들은 하늘의 주인인 다이우스 피타의 삼원적 지도력 아래에서 만신(萬神)으로 조직되었다; 대기의 광포한 주인인 인드라; 그리고 땅의 주인이며 초기의 삼위일체 개념의 흔적인 머리가 셋 달린 불의 하느님인 애그니가 있었다.

94:1.4 (1027.5)

명확한 단일신교의 발전들은 진화된 일신교(一神敎)를 위해 길을 닦고 있었다. 가장 오래된 신(神)인 애그니는 전체 만신의 아버지-우두머리로 종종 승격되곤 하였다. 어떤 때에는 프라야파티로 불리는, 때로는 브라마로 명명되는, 신(神)-아버지 원리가 후에 브라만 사제들이 살렘 선생들과 싸웠던 신학적 전쟁에서 가라앉았다. 브라만은 베다의 만신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에너지-신성 원리로 생각되었다.

94:1.5 (1028.1)

살렘 선교사들은 멜기세덱의 하나의 하느님, 하늘에 계신 지고자를 전도하였다. 이러한 묘사는 모든 신(神)들의 근원으로서 아버지-브라마라의 창발하는 개념과 모두 불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살렘의 교리는 비(非)의식적이었고 그리하여 브라만 사제 제도의 독단론, 전통들 그리고 가르침들에 직접적으로 거슬리는 것이 되었다. 브라만 사제들은 신앙을 통한 구원, 의식적인 행사와 희생 제물의 예식들과는 별도의 하느님의 은혜의, 살렘 가르침을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94:1.6 (1028.2)

신앙을 통한 구원과 하느님을 신뢰하는 멜기세덱 복음을 거부한 것은 인도에 중대한 전환점을 이루었다.

살렘 선교사들은 모든 고대 베다의 하느님들에 대한 신앙의 소멸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베다의 가르침의 사제들인 영도자들은, 하나의 하느님과 하나의 단순한 신앙에 대한 멜기세덱의 가르침을 거부하였다.

94:1.7 (1028.3) 브라만들은 살렘 선생들과의 투쟁의 노력으로 자기들 시대의 성스러운 기록들을 발췌하였으며, 이 편집물은 나중에 다시 개정되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리그-베다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성스러운 책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브라만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경배와 희생의 그들의 의식들을 구체화시키고, 형식화하고, 고정시키려고 애를 씀에 따라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의 베다들이 계속 만들어졌다. 그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개념의 아름다움과 통찰력의 진실에서 비슷한 성격의 다른 본문들과 동일하다. 그러나 우월한 이 종교가 남부 인도의 수많은 미신들과 예배종파들과 예식들에 의해 오염되게 되자, 그것은 점차적으로 필사 사람이 개발한 것들 중에서 가장 잡다한 체계로 변환되었다. 베다 경전들을 살펴보면, 전에 알려졌던 신(神)에 대한 개념 중에서 가장 높은 것들과 가장 타락된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 2 장. 브라만교

94:2.1 (1028.4) 살렘 선교사들이 남쪽으로 이동하여 드라비다의 데칸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점차 확대되는 특권계급 체계, 두 번째 산각 종족들의 증가에 직면하여 종족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한 아리아족들의 계획과 부닥치게 되었다. 브라만 사제 특권계급이 이 체계의 가장 근본이었기 때문에, 이 사회 계층이 살렘 선생들의 전진을 크게 방해하였다. 이 특권계급 체계는 아리아 종족을 구원하기에 실패하였지만, 반면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도에서 그들의 종교적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는 브라만들을 영속시키는 것에 성공하였다.

94:2.2 (1028.5) 그리고 이제는, 더 높은 진리를 거부함으로써 베다의 가르침이 악화되면서, 아리아들의 예배종파는 데칸으로부터 점점 더 침식을 당하기 시작하였다. 인종적인 사멸(死滅)과 종교적인 소멸의 조류를 막아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브라만 특권계급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스스로를 우위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들은 신(神)에게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것이 모두-효과적이라고 가르쳤고, 그것은 그 위력에 있어서 모두-강압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우주에 두 가지의 근본적인 신성한

원칙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는 신(神)인 브라만이었고, 다른 하나는 브라만 사제 계급이었다. 유란시아의 다른 민족들 중에서 사제들이 스스로를 그들의 하느님들보다 더 높은 존재로 드높이려고 하였고, 그들의 하느님들에게 돌아갈 명예를 그들 자신에게로 돌린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뻔뻔스러운 주장들과 함께 너무나 모순되게 멀리 갔기 때문에 전체의 불확실한 체계는 주변의 덜 발전된 문명들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저급의 예배종파들 앞에서 붕괴되었다. 거대한 베다의 사제 계급 자체는, 그들 자신의 이기심과 어리석은 가정이 인도 전체에 초래하였던 타성과 염세주의의 암담한 홍수 밑으로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들어 갔다.

94:2.3 (1029.1) 자아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사람, 짐승 또는 초목으로의 끝없는 환생으로 자아의 비진화적인 영속의 두려움으로 확실하게 인도하였다. 그리고 새로 나타나는 일신교가 될 수도 있었던 것에 고정될 수 있는 오염된 신념들 전체 중에서, 어떤 것도 드라비다의 데칸으로부터 온 윤회에 대한 이 신념—혼들이 다시 태어난다는 교리—처럼 그토록 망쳐놓지 못하였다. 지루하고도 단조로운 반복적인 윤회에 대한 이 신념은, 초기 베다의

신념의 한 부분이었던, 죽음 안에서 해방과 영적 전진을 발견한다는 그들이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 왔던 희망을, 투쟁하는 필사자들로부터 빼앗아갔다.

94:2.4 (1029.2) 철학적으로 쇠약하게 만드는 이 가르침은, 모든 창조의 대혼(大魂)인 브라만과 절대적인 연합의 평화와 우주적 안식과 평화 속에 잠김으로써 자아로부터 영원한 탈출 교리의 창안이 뒤따랐다. 필사자 욕망과 인간적 야망은 효과적으로 강탈되고 실질적으로 파괴되었다. 2,000년이 넘도록, 인도의 더 나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든 욕망에서 탈피하려고 애썼으며, 그리하여 영적인 절망상태의 고리로 수많은 힌두 민족들의 혼(魂)들을 실질적으로 속박해온 후대의 예배종파들과 가르침들에게 출입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 모든 문명들 중에서, 베다의 아리안은 살렘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가장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였다.

94:2.5 (1029.3) 특권계급 자체만으로는 아리안의 종교-문화적 체계를 영속시킬 수 없었으며, 데칸의 열등한 종교들이 북쪽으로 퍼지면서, 절망과 자포자기의 시대가 발전되었다. 생명을 취하지 않는 예배종파가 일어난 것은

바로 이러한 암흑시대 동안이었으며, 그 후로 계속 유지되어 왔다. 새로운 예배종파들 대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구할 수 있었던 구원은 아무 도움 없이 사람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행한 철학의 많은 부분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과 아담의-가르침들의 왜곡된 잔해들을 추적할 수 있다.

94:2.6 (1029.4) 힌두 신앙의 후대 경전들인 브라마나와 우파니샤드가 편집된 것은 바로 이 시대였다. 유일한 하느님과의 개인적 신앙을 통한 개인적 종교의 가르침들을 거부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사람모습의-신(神) 사상들과 환생에 대한 데칸으로부터의 타락하고 쇠퇴하는 예배종파들의 홍수로 오염되었음으로, 브라만교의 사제들은 이러한 손상되는 믿음들에 대항하는 격렬한 반발을 체험하였다; 참된 실체를 추구하고 찾으려는 명확한 노력이 있었다. 브라만들은 신(神)에 대한 인도사람의 개념을 사람모습 탈피의-신(神)을 세우려고 하였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하느님에 대한 개념, 파라다이스 아버지에 대한 고상하고 영적인 이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절대자의 미미하고

형이상학적인 관념, 개인성화 탈피의 통탄할만한 실수로 빠져들었다.

94:2.7 (1029.5) 브라만들은 자기-보존을 위해 애쓰는 그들의 노력들에서 멜기세덱의 한 분의 하느님을 거부하였으며, 이제 그들은 그 불행한 시대로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무력하고 패배적인 인도의 영적 삶을 남겨놓은 미(未)개인적이며 어떤 도움도 없는, 불분명하고 현혹적인 철학적 자아인 브라만의 가설로서의 자아를 발견하였다.

94:2.8 (1029.6)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한 것은 우파니샤드가 작성되던 시대였다. 그러나 그것의 천 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후대의 힌두교와는 경쟁할 수 없었다; 보다 높은 도덕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초기 하느님에 대한 묘사는 더 적게 그리고 개인적 신(神)들을 대비한 힌두교의 것보다도 잘 정의(定意)되지 못하였다. 불교는 마침내 우주의 최극 하느님으로 알라의 선명한 개념과 함께 전투적인 이슬람의 맹공격 앞에서 북부 인도 지역을 내어주게 되었다.

제 3 장. 브라만교의 철학

94:3.1 (1030.1) 브라만교의 가장 높은 위상은 거의 종교라고 할 수 없지만, 필사자 마음이 철학과 형이상학의 영역 속으로 가장 훌륭하게 도달한 것들 중의 하나이다. 최종적인 실체의 발견을 위하여 출발하였으므로, 인도인의 마음은 거의 모든 신학적 위상들을 깊은 사색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지만 필수적인 이원적(二元的) 종교개념은 제외되고 있었다: 모든 우주적 창조체들의 우주 아버지의 실존과 그리고 바로 이 창조체들이, 그가 완전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완전해지기를 명령하신 영원한 아버지에게 도달하려고 애쓰면서 우주에서 상승하는 체험이라는 사실이다.

94:3.2 (1030.2) 브라만의 개념에서 당대의 마음들은 모든 것에 스며있는 어떤 절대자에 대한 관념을 정말로 파악하였다. 왜냐하면 이 가정(假定)이 한 때 그리고 동시에 창조적인 에너지와 조화우주적인 반응으로 정체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브라만은 모든 정의(定義)를 초월하는 것, 모든 유한적인 본질특성들에 대한 연속적인 부정에 의해서만 깨달아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것은 확실히 절대적인 존재, 심지어 무한한 존재에 대한 믿음이었지만, 이 개념은 대개 개인성 속성들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교인들에 의하여 체험될 수 없었다.

94:3.3 (1030.3) 브라만-나라야나는 절대자, 무한한 스스로 인 것, 잠재적인 조화우주의 근원적인 창조적 잠재력, 모든 영원 전체에 정적(靜的)으로 그리고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우주 자아로 이해되었다. 그 당시의 철학자들이 신(神) 개념에 대한 다음 단계의 진보를 이룩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브라만을 협동적이고 창조적인 것으로, 창조되고 진화하는 존재들이 다가갈 수 있는 개인성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되었다면 그러한 가르침이 유란시아에서 가장 진보된 신(神)에 대한 묘사가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체의 신(神) 기능의 처음 다섯 가지 차원들을 포함할 수 있었고 나머지 두 가지도 통찰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94:3.4 (1030.4) 특정 위상들에서 모든 창조체 실존의 합친 것의 전체를 하나의 우주 대혼(大魂)이라는 개념이 인도 철학자들을 최극존재에 대한 진리에 매우 가까이 인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는 그들에게 무가치한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브라만-나라야나에 대한

그들의 이론적인 일신교적(一神敎的) 목표 달성에 이르는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개인적 접근으로 진화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94:3.5 (1030.5) 다시, 인과관계의 연속성의 업(業)의 원칙은, 최극자의 신(神) 현존에서 모든 시간-공간 활동들의 반향적인 합성의 진리에 매우 근접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개별 종교인에 의한 신(神)의 조화-협동적인 개인적 달성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단지 우주적 대혼(大魂)에 의한 모든 개인성의 궁극적 흡수만을 제공하였다.

94:3.6 (1030.6) 또한 브라만교의 철학은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에 대한 깨달음에 거의 접근하였지만, 진리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통하여 곡해되었다. 우주적 존재의 이 내주와 동떨어져서는 어떠한 인간의 개별존재성도 없다는 신념으로 이 개념이 완벽하게 손상되지 않았다면, 브라만의 내주가 혼이라는 가르침은 진보된 종교를 낳을 수 있는 길을 닦을 수도 있었다.

94:3.7 (1030.7) 자아-혼과 대혼(大魂)과의 융합의 교리에서, 인도의 신학자들은 인간적인 어떤 것, 새롭고도 독특한

어떤 것, 사람의 의지와 하느님의 의지의 연합으로 태어난 어떤 것의 생존을 위한 준비에 실패하였다. 혼이 브라만으로 돌아간다는 가르침은 우주 아버지의 품안으로 조절자가 돌아간다는 진리와 매우 유사하지만, 필사자 개인성의 모론시아적 상대자로 생존하는 조절자와 다소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개념이 브라만의 철학에는 치명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94:3.8 (1031.1) 브라만의 철학은 많은 우주의 사실들에 접근하였고 여러 조화우주 진리에 다가갔지만, 그것은 모두를 절대적, 초월적 그리고 유한한 그러한 실체의 여러 차원들 사이를 차별화하는 데 실패하는 실수에 빠진 희생자로 너무나 자주 만들었다. 절대 차원에서는 유한-착각일 수 있는 것이 유한한 차원에서는 절대적인 실제적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진화적 창조체의 제한된 하느님과의 체험으로부터, 파라다이스 아버지와 가지는 영원한 아들의 무한한 체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들마다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우주 아버지의 근본적 개인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제 4 장. 힌두교

94:4.1 (1031.2) 인도에서 여러 세기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멜기세덱 선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 변경되었고 후대의 브라만 사제들에 의해 구체화되었던 베다의 고대 예식으로 다소 되돌아갔다. 세계의 종교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세계주의적인 이 종교는 불교와 자이나교에 의해 그리고 후대에 나타난 마호멧교와 그리스도교의 영향에 의해 더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착할 무렵에, 그것들은 이미 너무 서구화 되어 “백인들의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힌두인 마음에는 생소하고 이국적인 것으로 되었다.

94:4.2 (1031.3) 현재의 힌두 신학은 신(神)과 신성에 대해 네 개의 하향식 차원들을 묘사하고 있다.

94:4.3 (1031.4) 1. 브라만, 절대자, 무한한 자, 스스로인 것.

94:4.4 (1031.5) 2. 삼신일체(三神一體), 힌두교의 최극 삼위일체. 이 관계적-연합 에서 첫 번째 위(位)인 브라마는 브라만—무한—에서 자아-창조된 존재로 이해된다. 그것이 범신주의적 무한한 자와 가까운 정체화구현이 아니었다면, 우주 아버지의 개념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또한 브라마는 숙명과도 정체성이 확인되었다.

94:4.5 (1031.6) 두 번째와 세 번째 위(位)에 해당하는 시바와 비쉬누에 대한 경배는 그리스도 이후 첫 번째 1,000년에 생겨났다. 시바는 생사의 주인이고, 풍요의 하느님이며, 파괴의 주인이다. 비쉬누는 그가 주기적으로 인간의 형태로 육신화 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매우 대중적이다. 이 방법으로 비쉬누는 인도인들의 상상들 속에서 실제적이고도 살아있다. 어떤 사람들은 시바와 비쉬누 각각을 모든 것보다 뛰어난 최극으로 간주한다.

94:4.6 (1031.7) 3. 베다와 베다-이후의 신(神). 앙니, 인드라, 소마 등과 같은 아리안의 많은 고대(古代) 하느님은 삼신일체(三神一體)의 세 구성원의 2차적 존재로 존속하였다. 그 후에 새로 생겨난 여러 하느님들은 베다 인도의 초기 시대부터 계속 형성되었고, 이것들도 힌두 만신(萬神)으로 결합되었다.

94:4.7 (1031.8) 4. 반신반인(半神半人)들: 초인간들, 반신(半神)들, 영웅들, 마귀들, 귀신들, 악한 영들, 요정들, 괴물들, 악귀들, 그리고 후대 예배종파들의 성자(聖子)들.

94:4.8 (1031.9) 힌두교는 인도 민족에게 생기를 주는 일에 오랫동안 실패해 오고 있는 반면, 동시에 그것은 통상적으로 관용의 종교였다. 그 종교의 위대한 힘은 그것이 유란시아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적응력이 있고, 정형화되지 않은 종교로 판명된 사실에 있다. 종교는 거의 무제한적인 변화의 능력과, 지적인 브라만의 높고 그리고 거의 일신교적(一神敎的)인 깊은 사색들로부터 무지한 신자들의 타락하고 억압된 등급들의 터무니없는 물신 숭배와 원시적인 예배종파의 실천 관행들에 이르기까지 드문 범주의 유연한 조절을 소유하고 있다.

94:4.9 (1032.1) 힌두교는 그것이 인도의 기본적인 사회구조를 본질적으로 집대성을 이루는 하나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유지되어 왔다. 그 종교에는 교란되거나 파괴될 수 있는 큰 계급 제도가 없었다; 민족의 생활형태 속에 짜여 있다. 그것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모든 예배종파들을 능가하는 적응력을 갖고 있으며, 다른 여러 종교들을 수용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고타마 부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 그 자신도 역시 환생한 비쉬누라고 주장한다.

94:4.10 (1032.2) 오늘날 인도에서 매우 필요한 것은 예수 공동체의 복음—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랑하는 사명활동과 사회적인 봉사 속에서 개인적으로 실현되는, 모든 사람들의 아들 신분과 그리고 결과적인 형제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다. 인도에는 철학적 틀이 실존하고 있고, 예배종파 체제가 현존하고 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아들의 기원적인 복음 속에 묘사된 역동적인 사랑의 활력을 부어넣는, 미가엘의 증여 삶을 백인들의 종교로 만들려고 해왔던 서방의 독단론들과 신조들의 옷을 벗겨낸, 활력의 불꽃이다.

제 5 장. 중국에서의 진리를 위한 투쟁

94:5.1 (1032.3) 살렘 선교사들이 지고자 하느님의 교리와 신앙을 통한 구원을 전파하면서 아시아를 지나갈 때, 그들은 통과하는 여러 지역들의 철학적 종교적 생각들을 많이 흡수하였다. 그러나 멜기세덱에 의해 임명된 선생들과 그의 후계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에서 불이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유라시아 대륙의 모든 민족들 속으로 퍼져 들어갔고, 그들이 중국에 도착한 것은 그리스도 이전 1,500년경이었다. 살렘 사람들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 후시에 자기들의 본부를 유지하였으며, 그곳에서 황색

인종의 모든 지역 사람들을 가르친 중국인 선생들을 훈련시켰다.

94:5.2 (1032.4) 오늘날 명명된 것과는 매우 다른 종교인 초기 형태의 도교(道敎)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은 이러한 가르침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초기 또는 원시 형태의 도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의 합성 이었다:

94:5.3 (1032.5) 1. 하늘의 하느님인 상제(上帝)의 개념 속에 남아 있었던,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싱랑톤의 가르침들. 싱랑톤의 시대에는 중국 민족이 실질적으로 유일신(唯一神)론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나중에 하늘의 영, 우주의 통치자로 알려진 한 분 진리자(真理者)에 그들의 경배를 집중하였다. 그리고 황색 인종은, 그 후 여러 세기 동안 많은 하급의 하느님들과 영들의 개념이 그들의 종교 속으로 교활하게 스며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神)에 대한 이 초기 개념을 전부 잃어버린 적이 결코 없었다.

94:5.4 (1032.6) 2. 사람의 신앙에 대한 응답으로 인류에게 은혜를 증여하는, 지고자 창조자 신(神)의 살렘 종교. 멜기세덱 선교사들이 황색 인종의 지역으로 들어갔을 무렵에,

그들의 기원적 메시지가 마키벤타 시대에 살렘의 단순한 교리로부터 상당히 변형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94:5.5 (1032.7) 3. 모든 악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갈망과 연결된, 인도 철학자들의 브라만-절대자 개념. 살렘 종교가 동쪽으로 퍼져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외부적 영향은 아마 브라만—절대자—에 대한 그들의 개념을 살렘 사람들의 구원 사상 속으로 주입시켰던 베딕 신앙을 가르치는 인도인 선생들에 의해 발휘되었을 것이다.

94:5.6 (1033.1) 복합적인 이 신념은 황색인종과 갈색인종 지역에 퍼져나가서 종교적-철학적 생각 밑바탕에 영향을 주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원시적-도교가 신교로 알려졌고, 팔레스타인의 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나라에서 사람들은, 하느님의 이름이 인류에 의해서 잊히지 않도록 이 세상에 거주하였던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육신화에 대해 배웠다.

94:5.7 (1033.2) 중국에서는, 이러한 모든 신앙들이 후대에 이르러서는, 계속 자라나는 조상숭배의 예배종파와 혼동되고 혼합되었다. 그러나 싱랑톤의 시대 이후로 중국인들이 성직자 제도에 아무 것도 어찌할 수 없이

노예로 추락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황색 인종은 야만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체계 있는 문명으로 발전된 최초의 인종이었다, 왜냐하면 최초로 하느님들에 대한 비굴한 두려움으로부터 처음으로 어느 정도 자유를 성취하고, 다른 종족은 두려워하던 그러한 죽은 자의 영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중국이 패배하게 된 것은 초기에 있었던 사제로부터의 해방을 넘어서서 발전하는 데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거의 마찬가지로 비참한 실수, 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

94:5.8 (1033.3) 그러나 살렘 사람들의 활동이 무익한 것은 아니었다. 6세기경에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가르침들을 수립한 것은 그들의 복음의 기초 위에서였다. 노자(老子)와 공자(孔子) 시대의 도덕적 분위기와 영적 정서는 그 이전 시대의 살렘 선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발생되었다.

제 6 장. 노자와 공자

94:6.1 (1033.4) 미가엘이 도착하기보다 약 600년 전에, 육신으로부터 떠난 지 오래된 멜기세덱에게는, 유란시아의 옛 신앙들 속으로 전반적으로 흡수됨으로써,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르쳤던 것들의 순수성이 심히 위태롭게 된 것처럼 보였다. 미가엘의 선구자로서 그의 임무가 한동안 위험에 처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자 그리스도 이전 6세기경에, 영적 대리자들의 비상한 조화-협동을 통하여 유란시아에는 다양한 종교적 진리의 가장 비상한 제시가 있었으며, 행성 감독자들도 모든 것들을 다 납득하지 못할 정도였다. 여러 인간 선생들인 대리자를 통하여 살렘의 복음이 다시 규정되고 소생되었으며, 그 당시에 제시된 대부분의 것들은 이 기록이 쓰일 때까지도 계속 존속되었다.

94:6.2 (1033.5) 영적인 진보의 이 독특한 시대는 모든 문명화된 세계에 위대한 종교적, 도덕적, 철학적 선생들에 의하여 특징지어진다. 중국에서의 두 사람의 유명한 선생들은 노자(老子)와 공자(孔子)이었다.

94:6.3 (1033.6) 노자는 모든 창조에 대한 첫째원인 하나로 도(道)를 천명하였을 때 직접적으로 살렘 전통들의 개념 위에 기초를 두었다. 노자는 위대한 영적 시야의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도(道), 최극 하느님 그리고 우주의 왕과 영영토록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가르쳤다. 궁극적인 원인성에 대한 그의 이해는 가장 통찰력 있는 것이었으니 이로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절대적 도(道)에서 합일이 일어나 나오고, 합일로부터 조화우주적 이원성(二元性)이 나타나며, 그러한 이원성으로부터 삼위일체가 실존으로서 솟아 오르고, 삼위일체는 모든 실체의 시원(始原)적 근원이다.” “모든 실체는 조화우주의 잠재자들과 실재자들 사이에서 언제까지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신성의 영에 의해서 영원토록 조화를 이루고 있다.”

94:6.4 (1033.7) 또한 노자는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가장 처음 제시된 교리 중의 하나를 발표하였다: “선(善)이 선을 얻게 하지만, 참으로 선한 사람에게는 악도 선을 얻게 한다.”

94:6.5 (1033.8) 그는 창조체가 창조자께로 돌아간다고 가르쳤으며, 생명을 조화우주적인 잠재로부터의 개인성 창발로 묘사한 반면, 죽음은 이 창조체 개인성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묘사하였다. 참된 신앙에 대한 그의 개념은 무위(無爲)였으며, “어린아이의 태도”에 자주 비유하였다.

94:6.6 (1034.1) 하느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대한 그의 납득은 매우 분명하였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절대자 신(神)은 분투하지는 않지만, 항상 승리한다; 그는 인류를 강제하지 않지만 그들의 참된 간구에 대해서 응답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 하느님의 뜻은 영원토록 인내하는 것이고 그 표현에 있어서 영원토록 필연적이다.” 그리고 참된 종교인에 대하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진리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선한 사람은 진리를 자기 혼자서만 차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재산들을 자기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려고 애쓰게 되는데, 이는 그것이 진리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절대자 하느님의 뜻은 항상 유익을 주고 파괴시키지 않는다; 참된 신자(信者)의 목적은 항상 행동하는 것이지, 결코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94:6.7 (1034.2) 무저항에 대한 노자의 가르침과, 행동 및 강요 사이에 대한 구분이 나중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을, 보며 행하며 그리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신념들로 곡해되었다. 그러나 노자는 그 같은 실수를 가르친 적이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저항에 대한 그의 제시는 중국

사람들의 평화를 사랑하는 성향이 더욱 발전되게 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94:6.8 (1034.3) 그러나 20세기 유란시아의 대중적인 도교는
옛날의 철학자가 그가 깨달은 진리를 가르쳤던
조화우주적 개념과 고상한 정서와 거의 일치하지 않는데,
그것은 절대자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신성한 에너지의 근원이며, 그것에 의해서 사람은
도, 우주들의 영원한 신(神)이자 창조자 절대자와, 영적
연합으로 상승한다.

94:6.9 (1034.4) 공자(공 후-쯔)는 6세기에 중국에서 노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보다 젊은 사람이었다. 공자는 그의 신조를
황인종의 오랜 역사에서의 좀더 나은 도덕적 전통에
기초를 두었으며, 또한 남아있는 살렘 선교사들의 전통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 그의 주된 일들은 옛
철학자들의 지혜로운 말들을 편찬하는 것에 있었다. 그는
그의 평생 동안 거부 받은 선생이었지만, 그가 기록한
문서들과 가르침들은 그 후로 줄곧 중국과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자는 마술이 있던 자리에 도덕을 올려
놓음으로서 무당들에게 새로운 걸음을 세워 놓았다.

그러나 그는 지나치게 잘 세웠다; 그는 계층을 그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물로 만들어 내었고, 조상의 행위를 존경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글을 쓸 때에도 중국인들에 의해 이것은 아직도 여전히 숭배되고 있다.

94:6.10 (1034.5) 도덕성에 대한 공자의 설교는, 이 세상의 도(道)가 하늘의 도(道)의 왜곡된 그림자라는 것; 현세 문명의 참된 원형들은 하늘의 영원한 계층을 거울처럼 반사하는 것이라는 이론에 근거를 두었다. 유교(儒敎)에 있는 잠재적 하느님 개념은 하늘의 도(道), 곧 조화우주의 원형들에 거의 완벽하게 종속되었다.

94:6.11 (1034.6) 노자의 가르침은 동양에서 소수만 남겨놓고 모두에게서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공자의 글들은 그 후로 계속 유란시아인의 거의 3분의 1의 사람들의 문화에서 도덕적 짜임새의 기초를 이루었다. 이러한 공자의 가르침들은 과거의 가장 좋은 것을 영속시키고 있지만, 그토록 숭배받을 업적들을 낳았던 바로 그 중국인의 탐사하는 영에 다소간 해로운 것이었다. 이들 신조들의 영향은 진시황제 황실의 노력과 묵자(墨者)의 가르침에 의해서 도전을 받았으나, 성과없는 싸움이였다.

묵자(墨者)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에 기초를 둔 형제관계를 부르짖었다. 그는 새로운 진리를 찾던 예전의 탐구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애썼지만, 그의 가르침은 공자의 제자들의 억센 반대 앞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94:6.12 (1034.7) 수많은 다른 영적 및 도덕적 선생들과 마찬가지로, 공자와 노자 역시 인도로부터 온 불교 선교사들의 도래와 도교 신앙의 쇠퇴 및 타락 사이에 있었던 중국의 영적 암흑기에 그들의 추종자들에 의해 결국에는 신화(神化)되었다. 이러한 영적 퇴폐기 동안 황색 인종의 종교는 악마들, 용들, 그리고 악한 영들, 모두 깨우치지 못한 필사자 마음의 반사적인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들로 가득 찬 비참한 신학 체계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한 때 진보된 종교로 말미암아 인간 사회의 우위를 차지하였던 중국은 그 후에, 개별 필사자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행성에서 문화와 사회의 진보를 특징짓는 복잡하고도 복합적인 문명들의 참된 진보에 필수 불가결한 하느님-의식 개발의 참된 경로에서 발전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실패하였기 때문에 뒤쳐지게 되었다.

제 7 장. 고타마 싯다르타

94:7.1 (1035.1) 중국에서 노자와 공자가 활동하던 동시대에, 진리의 위대한 다른 선생이 인도에서 나타났다. 고타마 싯다르타는 그리스도 이전 6세기에 인도 북부 지방의 네팔에서 태어났다. 그의 추종자들은 나중에 그가 엄청나게 부유한 통치자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남부 히말라야의 험소하고도 외진 산악 계곡을 힘들게 다스리는 소규모 족장의 후계자였다.

94:7.2 (1035.2) 고타마는 쓸모없는 요가 실천 연습을 6년 동안 한 후에, 불교 철학으로 발전되는 이론을 정립하였다. 싯다르타는 점점 왕성해지는 특권계급 제도에 대항하여 단호하지만 그러나 효과가 없는 투쟁을 하였다. 이 젊은 예언자 왕자에게는 그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크게 호감을 샀던 고상한 성실성과 독특한 사심-없음이 있었다. 그는 물리적 고통과 개인적 고뇌를 통하여 각자의 구원을 추구하는 실천 연습으로부터 물러났다. 그리고 그는 자기 추종자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도록 권고하였다.

94:7.3 (1035.3) 인도에서 혼란되고 극단적인 예배종파 실천 관행들 속에서, 보다 온전하고 절도 있는 고타마의 가르침이 참신한 구원으로 다가왔다. 그는 신(神)들, 사제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고발하였지만, 그도 역시 하나의 우주 존재의 개인성을 깨닫는데 실패하였다. 고타마는 개별적인 인간 혼들의 실존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혼의 윤회에 대한 전통적인 믿음에 반대하여 단호하게 투쟁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움으로부터 구해내고, 거대한 우주에서 그들이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고귀한 노력을 하였지만,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실제적인 하늘의 집—파라다이스—에 도달하는 길과 영원한 실존의 확대되는 봉사 업무에 이르는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하였다.

94:7.4 (1035.4) 고타마는 실제적인 선지자였다, 그리고 만일 그가 은둔자 고다드의 가르침에 주의하였다면, 신앙에 의한 구원의 살렘 복음의 회복의 영감(靈感)에 의해서 인도 전체를 깨우칠 수도 있었다. 고다드는 멜기세덱 선교사들의 전통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은 가문을 이은 사람이었다.

94:7.5 (1035.5) 고타마는 베나레스에 자신의 학교를 설립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관하여 살렘 선교사들이 전한 전통들을 바우탄이라는 학생이 자기 스승에게 전해 주었다; 싯다르타는 우주 아버지에 관하여 매우 분명한 개념을 갖지 못한 반면, 신앙—단순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진보된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자기 입장을 표명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60명의 집단으로 나누어 내보내기 시작함으로써 “자유로운 구원의 기쁜 소식;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신앙에 의해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을 인도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다.

94:7.6 (1035.6) 고타마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으며 여승들 체제의 설립자였다. 그의 아들이 그의 뒤를 이었고, 예배종파를 크게 확장시켰다; 그는 신앙을 통한 구원의 새로운 관념을 깨닫기는 하였지만, 말년에 가서 그는 오직 신앙만으로 신성한 은혜를 받는다는 살렘 복음에 흔들렸고, 늙어서 유언을 남길 때에는 “너 자신만의 구원을 해결하라.”고 말하였다.

94:7.7 (1036.1) 가장 좋았을 때 선포된, 고타마의 보편적 구원의 복음, 곧 희생제물, 고통, 종교예식. 그리고 사제들로부터의 자유로움은 그 당시에 혁명적이고도 놀라운 교리였다. 그리고 그것은 놀랍게도 살렘 복음이 회복되는 상태에 가까웠다. 그것은 절망하는 수백만의 혼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었고, 나중에 여러 세기에 걸친 괴상한 왜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백만 인간 존재들의 희망으로 남아있다.

94:7.8 (1036.2) 싯다르타는 그의 이름을 따르고 있는 현대 예배종파들 속에 잔존해 온 것보다 더 많은 진리를 가르쳤다. 그리스도교가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이 아닌 것처럼 현대 불교는 고타마 싯다르타의 가르침이 더 이상 아니다.

제 8 장. 불교 신앙

94:8.1 (1036.3) 불교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귀의(歸依)의 말을 낭송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부처 안에 귀의하며; 교리 안에 귀의하며; 형제관계 안에 귀의합니다.”

94:8.2 (1036.4) 불교는 신화에서 기원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에서 기원되었다. 고타마의 추종자들은 그를 사스타라고 불렀는데, 주인 또는 선생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무런 초인간적 주장을 하지 않은 반면, 그의 제자들은 일찍부터 그를 부처, 깨우친 자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나중에는 석가모니 부처라고 불렀다.

94:8.3 (1036.5) 고타마의 기원적 복음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고상한 진리들을 기초로 하였다:

94:8.4 (1036.6) 1. 고난의 고상한 진리들.

94:8.5 (1036.7) 2. 고난의 기원들.

94:8.6 (1036.8) 3. 고난 극복.

94:8.7 (1036.9) 4.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94:8.8 (1036.10) 고난에 대한 교리와 그것으로부터의 도피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팔정도(八正道) 철학이 있었다: 올바른 식견, 사유, 말, 행위, 생활습관, 정진, 마음챙김, 그리고 깊은 사색이다. 고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모든 노력과 갈망과 애정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고타마의 뜻이 아니었다; 그의 가르침은 오히려 현세적인 목표들과 물질적인 대상들에게만 전적으로 모든 희망과 소망을 거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필사 사람에게 보여주도록 계획된 것이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참된 신자(信者)들로 하여금 물질적인 이 세상의 관계들을 뛰어 넘어서 영원한 미래의 실체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94:8.9 (1036.11) 고타마가 설파한 도덕적 계명들에는 다섯 가지가 있었다:

94:8.10 (1036.12) 1. 살인하지 마라.

94:8.11 (1036.13) 2. 도둑질하지 마라.

94:8.12 (1036.14) 3. 음란하지 마라.

94:8.13 (1036.15) 4. 거짓말하지 마라.

94:8.14 (1036.16) 5. 취하게 하는 음료를 마시지 마라.

94:8.15 (1036.17) 계율의 이행이 신자들의 선택에 달린 몇 가지 부가적인 또는 이차적(二次的)인 계명들도 있었다.

94:8.16 (1036.18) 싯다르타는 인간 개인성의 불멸을 거의 믿지 않았다; 그의 철학은 오직 일종의 기능적 계속성만을 준비하였다. 그는 열반(涅槃) 교리 속에 포함시키려고 하였던 것을 명확하게 정의한 적이 없었다. 필사자가 실존하는 동안에 그것이 이론적으로 체험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완벽한 멸절의 상태로 통찰된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그것은 사람을 물질세계에 붙들어 매고 있는 모든 족쇄들이 파괴된 최극의 깨우침과 숭고한 기쁨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그곳에는 필사자 삶의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다시 육신화를 체험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었다.

94:8.17 (1037.1) 고타마의 기원적 가르침에 의하면, 구원은 신성한 도움과는 별개로 인간의 노력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다; 초인간적인 힘의 존재들에게 하는 기도 또는 구원을 얻는 신앙의 여지가 없다. 고타마는 인도의 미신들을 최소화하려는 그의 노력으로, 신비한 구원에 대한 노골적인 주장들로부터 사람이 멀어지게 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하면서, 그는 자기 후계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게 하고, 달성하려고 애쓰는 인간의 모든 분투가 험오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선포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그의 추종자들은 최고의 행복이 가치 있는 목표들을 지능적으로 그리고 열렬하게 추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성취가 조화우주적인 자아-실현 속에서 참된 진보를 이룩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

94:8.18 (1037.2) 싯다르타의 가르침에서 위대한 진리는 절대적 공의(公義)의 우주를 선포한 것이었다. 그는 필사 사람이 일찍이 발명한 신(神)이 없는 철학 중에서 가장 최선인 것을 가르쳤다; 그것은 이상적인 인본주의였으며, 미신과 신비 예식 그리고 귀신들과 마귀들에 대한 두려움의 모든 근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였다.

94:8.19 (1037.3) 불교의 기원적 복음의 가장 큰 약점은 그것이 사심-없는 사회봉사의 종교를 창출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오랫동안, 불교의 형제신분은 신자들의 형제우애관계라기 보다는 오히려 학생이자 선생들의 공동체였다. 고타마는 그들에게 돈을 받지 못하도록 금하였고 그렇게 하여 계급적인 경향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고타마 자신은 매우 사교적이었다; 그의 삶이 그의 설교보다 훨씬 더 위대하였다.

제 9 장. 불교의 전파

94:9.1 (1037.4) 불교는 깨우친 자인 부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제시하였기 때문에 번영하였다. 그것은 동부 아시아 전체를 통하여 발견될 수 있는 다른 모든 종교 체계보다 가장 많이 멜기세덱을 대변한다. 그러나 불교는 멜기세덱과 미가엘 사이에서 이집트의 이크나톤 다음으로 가장 뛰어난 시민 통치자들 중의 하나였던 하위-특권계급 군주(君主) 아소카에 의해 자아-보호 수단으로 지지될 때까지 종교로 퍼져나가지 못하였다. 아소카는 자신의 불교 선교사들을 퍼뜨림으로써 위대한 인도 제국을 건설하였다. 25년 동안 그는 17,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훈련시켰고, 알려진 모든 세계의 가장 먼 국경들로 보냈다. 한 세대에 그는 불교를 전 세계의 절반을 지배하는 종교로 만들었다. 그것은 곧 티베트, 카슈미르, 실론, 버마, 자바, 시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에 전파되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것은 그것이 대체한 또는 증진시킨 그것들보다 훨씬 우월한 종교였다.

94:9.2 (1037.5) 불교가 인도의 원산지로부터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간 것은 진지한 종교인들의 영적인 헌신과 지속적인 선교에 대한 장렬한 이야기들 중의 하나이다.

고타마의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그들 신앙의 메시지를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하면서, 육로의 카라반 통로에서 당하는 위험을 담대하게 맞섰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륙을 대상으로 하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국해(中國海)에서의 위험에도 용감하게 대처하였다. 그러나 이 불교는 고타마의 단순한 교리가 더 이상 아니었다; 그를 하느님으로 만든, 신비화된 복음이었다. 그리고 불교가 원산지인 인도로부터 멀리 퍼지면 퍼질수록, 고타마의 가르침과는 더욱 더 멀어졌고, 그것은 자신이 대신한 종교와 점점 더 닮아갔다

94:9.3 (1038.1) 불교는 후대에 이르게 되자 중국에서는 도교에 의해서, 일본에서는 신교에 의해서, 그리고 티베트에서는 그리스도교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천 년이 지난 후에 인도에서는 불교가 다만 시들고 소멸되었다. 그것은 브라만화 되었으며 나중에는 이슬람교에 비굴하게 굴복하였지만, 반면에 동방의 나머지 지역 대부분에서는 고타마 싯다르타가 전혀 알지 못하였을 제례적(祭禮的)인 것으로 타락하였다.

94:9.4 (1038.2) 남부 지역에서는 싯다르타의 전형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근본주의자들이 실론과 버마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에 계속 존재하였다. 이것이 초기 또는 반(反)사회적 교리를 따르는 불교의 하이나야나 분파이다.

94:9.5 (1038.3) 그러나 인도에서 붕괴되기 전에도, 하이나야나 또는 "소승(小乘)"을 지지하는 남부의 순수파들과는 대조적으로, 고타마를 따르는 중국인들과 북부 인도인들의 집단들이 구원에 있어서 "대승(大乘)"을 따르는 마하야나 가르침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마하야나를 지지하는 이 사람들은 불교 교리에 전해 내려오는 사회적 제한성을 벗어났으며, 불교의 이 북부 분파는 그 후로 줄곧 중국과 일본에서 진화되었다.

94:9.6 (1038.4) 불교는 오늘날에도 살아있고 자라나는 종교인데, 왜냐하면 그것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높은 도덕적 가치들을 성공적으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평온과 자아-통제를 증진시키고, 침착함과 행복을 증강시키며, 많은 슬픔과 비탄을 막아준다. 이 철학을 믿는 그들은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

제 10 장. 티베트에서의 종교

94:10.1 (1038.5) 티베트에서는 멜기세덱의 가르침들이 불교와 힌두교 그리고 도교와 그리스도교와 합쳐진 가장 이상한 형태가 발견될 수 있다. 불교 선교사들이 티베트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초기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이 유럽의 북부에 있는 부족들 사이에서 발견하였던 것과 매우 흡사한 원시적인 야만적 상태에 부딪히게 되었다.

94:10.2 (1038.6) 순진한 이 티베트 사람들은 자기들의 옛 마술과 부적들을 전적으로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지금-현재 티베트에서 행해지는 제례들 중에서 종교적인 예식을 조사해 보면, 방울, 영창, 향, 행렬, 묵주, 형상, 장식물, 그림, 성수, 화려한 의복, 정교한 성가대를 포함하고 있는 정교하게 예식을 실천하는, 머리를 깎은 사제들로 구성된 과도하게 발달된 성직자 단체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들은 엄격한 독단론들을 갖고 있으며 신조들과 신비로운 예식들 그리고 특별한 금식 행위들을 정형화 시켰다. 그들의 계급 조직은 승려, 여자 승려, 주지, 달라이 라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천사들과 성인(聖人)들 그리고 성모와 하느님들에게 기도한다. 그들은 고해성사를 하며 연옥(煉獄)을 믿는다. 그들의 사원은 규모가 크고 장대한 경배실을 두고 있다. 그들은 신성한

종교예식을 끝없이 계속 반복하고, 그러한 예식들이 구원을 가져다준다고 믿는다. 그들은 기도가 어떤 바퀴에 고정되어서, 그것이 돌아갈 때 탄원하였던 것이 응답된다고 믿는다. 현대에 존재하는 어떤 민족으로부터도 그들처럼 그토록 많은 종교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예식들을 흡수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으며; 그러한 누적된 경배예식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방해가 되고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

94:10.3 (1038.7) 티베트 사람들은 예수 공동체 복음의 단순한 가르침 : 하느님의 아들관계, 사람들의 형제신분, 그리고 영원한 우주에서 계속 상승하는 시민의 자격에 대한 가르침을 제외한 세계의 뛰어난 모든 종교들의 요소들을 간직하고 있다.

제 11 장. 불교도의 철학

94:11.1 (1038.8) 불교는 그리스도 후 첫 번째 1,000년에 중국으로 전파되었으며, 황색 인종의 종교적 관습에 잘 조화되었다. 조상 숭배에서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죽은 자들에게 기도해 왔다; 이제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도 역시 기도할 수 있다. 불교는 집대성-해체활동의 도교(道教)로부터 잔존한

예배 실천 관행과 곧 혼합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종합적인 종교는 경배를 드리는 신전(神殿)과 일정한 종교적 예식과 함께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예배종파로 곧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94:11.2 (1039.1)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 불행한 일이기도 하지만, 고타마의 추종자들이 예배종파의 전통들과 가르침들을 왜곡시켜서 그를 신성한 존재로 만들기전까지는, 불교가 세상에 널리 퍼지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간 삶에 대한 이 신화는 그것이 수많은 기적이 동반되었던 것처럼 미화되면서, 불교의 복부 복음 곧 마하야나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매우 호소력이 있었음이 판명되었다.

94:11.3 (1039.2) 그의 후대 추종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석가모니 부처의 영이 살아있는 부처가 되어 정기적으로 이 세상에 돌아온다고 가르쳤다, 그리하여 부처 형상과 사원, 예배의식, 그리고 거짓된 “살아있는 부처”의 막연한 영속을 위한 길을 열었다. 그리하여 위대한 인도인의 개혁종교는 자기가 그토록 맹렬하게 반대하여 투쟁하였던 그리고 그토록 용맹스럽게 비난하였던 바로 그러한

예식적인 실천 관행과 의례적 주문에 그 스스로가 속박되었음을 결국에는 발견하게 되었다.

94:11.4 (1039.3) 불교 철학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진보는 모든 진리의 상대성에 대한 깨달음에 있었다. 이러한 가정(假定) 체제를 통하여 불교도들은 자기 자신의 종교적 경전들 안에 있는 다른 견해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것과 다른 많은 것들 사이의 차이들을 조화시키고 관련시킬 수 있었다. 그것은 나약한 마음들에게는 작은 진리가, 위대한 마음들에게는 큰 진리가 주어진다고 가르쳤다.

94:11.5 (1039.4) 또한 이 철학은 부처의 (신성한) 본성이 모든 사람 속에 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그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이러한 내적 신성(神性)의 실현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내주하는 조절자들에 대한 진리를 제시함에 있어서, 유란시아의 종교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 것들 중의 하나이다.

94:11.6 (1039.5) 그러나 싯다르타의 기원적 복음에 있어서 커다란 한계는,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이해되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대상 실체들로부터 자아(自我)를 고립시키는

기법에 의해 필사자 본성의 모든 한계들로부터 인간 자아의 완벽한 해방을 시도한 것이었다. 진정한 조화우주적 자아-실현은, 공간에 의해 속박을 받고 시간에 의해 제한되는 에너지와 마음과 영의 유한한 조화우주와 조화우주 실체와의 정체화구현에서 이룩된다.

94:11.7 (1039.6) 그러나 불교의 예식들과 외면적인 계율들이 불교가 전파되어 지나가는 지역들의 그것들에 의해 심하게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 사고 및 신념 체계를 받아들이었던 위대한 철학자들의 철학적인 삶 속에서 이러한 타락이 모두 발생된 것은 아니었다.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마음들은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자의 진리를 확인하려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94:11.8 (1039.7) 절대자의 고귀한 개념의 진화는 생각의 여러 경로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성(理性)의 복잡한 길들로 성취되었다. 무한성에 대한 이 교리의 향상은 히브리 신학에서의 하느님 개념의 진화처럼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불교도들의 마음들이 우주들의 시원(始原)적 근원을 상상하는 그들의

방법에 도달하고 거기에 머물며, 그것을 통과하는 어떤 폭넓은 차원들이 있었다: :

94:11.9 (1039.8) 1. 고타마 전설. 개념의 밑바닥에는, 인도의 왕자이며 예언자인 싯다르타의 가르침과 삶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이 전설은 불교가 여러 세기에 걸쳐서 아시아의 넓은 지역에 퍼지는 동안 신화적인 것으로 변해갔으며, 결국에는 고타마를 깨우친 자로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부가적인 속성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94:11.10 (1040.1) 2. 다수(多數)의 부처들. 고타마가 인도 사람들에게 왔었다면 그보다 먼 과거와 그보다 먼 미래에 인류의 종족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다른 선생들에게서 축복을 받아야만 하였으며,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 라고 추리되었다. 이것이, 여러 명의 부처들, 무제한적이고 무수히 많은 부처들이 존재한다는 가르침이 생겨나게 하였으며, 심지어는 누구든지 그러한 존재—부처의 신성(神性)을 달성하는—가 되기를 열망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3. 절대자 부처. 부처의 숫자가 무한성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시대의 마음들에게는 이러한 거대한 개념을 다시 통합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모든 부처들은 보다 높은 어떤 본질, 무한하고 분별불가적인 실존의 어떤 영원한 자, 모든 실체의 어떤 절대적인 근원의 현시활동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불교의 신(神) 개념은 가장 높은 형태를 취하면서 고타마 싯다르타의 인간 개인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였으며, 속박되어 있던 사람모습의-신(神) 사상의 한계들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영원자 부처에 대한 이 최종적 개념은 절대자, 때로는, 무한자 스스로 이신 이로 훌륭하게 정체성이 확인될 수 있다.

절대자 신(神)에 대한 이 관념이 아시아 민족들의 대중적인 호응을 얻은 적은 없었지만, 이 지역의 지성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철학을 통합될 수 있게 하였고 그들의 우주관을 조화롭게 하였다. 절대자 부처에 대한 개념은 때로는 반(半)-개인적이고, 때로는 온통 미(未)개인적, 어떤 경우에는 무한한 창조적 기세이기도 하다. 그러한 개념들은, 철학에 도움이 되지만, 종교적인 발전에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다. 사람모습의-

신(神)으로서의 야훼조차도, 무한히 멀리 있는 불교 또는
브라만교의 절대자보다 더욱 위대한 종교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94:11.13 (1040.4) 때로는 절대자가 무한자 스스로 이신 이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들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영원한 생존과 신성한 은혜를 보장할 수 있다는
살렘의 단순한 복음을 듣고자 갈망하는 굶주린 대중들을
위로할 수 없었다.

제 12 장. 불교의 하느님 개념

94:12.1 (1040.5) 불교의 우주관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2중인데:
인도와 중국의 많은 미신들에 의해 오염된 것 그리고
고타마를, 처음에는 깨우친 자로 그 다음에는 영원한
부처로 승화시킨 것이다. 그리스도교가 잘못된 많은 인간
철학을 흡수함으로써 수난을 당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불교 역시 인간적인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고타마의 가르침들은 지나간 2,500년 동안 계속 진화해
왔다. 깨우친 불교도에게 있어서 부처에 대한 개념이 더
이상 고타마의 인간 개인성이 아닌 것은, 깨우친

그리스도교인 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개념이 호렙 산의 정령(精靈)과 일치하지 않는 것과 같다. 용어의 부족은, 옛날 명칭들에 대한 정서적인 보존과 함께, 흔히 종교 개념에서의 진화에 대한 참된 의의(意義)를 이해하는 데 실패하도록 이끈다.

94:12.2 (1040.6) 절대자와 대조되는 하느님 개념이 불교 안에 점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근원은 소승(小乘)불교와 대승(大乘)불교의 추종자들이 나뉘던 초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느님과 절대자에 대한 이원적(二元的) 개념이 마침내 성숙된 것은 불교의 후자 분파이다. 하느님 개념은 세기가 지나가면서 한 걸음씩 진화되어 일본에서 료닌과 호넨 쇼닌 그리고 신란의 가르침으로, 마침내는 그 개념이 아미타 부처에 대한 믿음으로 성숙되게 되었다.

94:12.3 (1041.1) 이것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죽음을 체험한 혼은 실존의 궁극인 열반(涅槃)에 들어가기 전에 파라다이스에 머무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것은 서방의 파라다이스의 하느님인, 아미타의 신성한 자비와 사랑하는 보살핌에 대한 신앙으로써 새로운

구원이 달성된다고 선언한다. 그들의 철학에서, 아미타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유한 필사자 이해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한 실체를 굳게 붙잡고 있다; 그들의 종교 속에서는, 온통 자비로운 아미타,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한 신앙과 순수한 심정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파라다이스의 숭고한 행복 달성에서 실패하는 고통을 주지 않을 그러한 존재에 대한 신앙을 고수한다.

94:12.4 (1041.2) 불교의 위대한 강점은 그 신봉자들이 모든 종교로부터 자유롭게 진리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선택의 자유는 유란시아인 신앙으로 특징지어진 것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신 교파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 종교 집단의 하나가 되어 왔다; 그것은 고타마 추종자들의 고대(古代) 선교 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리고는 다른 민족들에게 선생들을 보내기 시작하였다. 어떤 근원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근원으로부터 진리를 수용하려는 이러한 기꺼운 마음은 그리스도 이후 20세기의 전반기 동안 종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난, 정말로 칭찬받을만한 경향이다.

94:12.5 (1041.3) 불교 자체는 20세기 부흥기를 지나가고 있다. 그리스도교와 접촉함으로써 불교의 사회적 측면은 크게 증진되어 왔다. 배우고자하는 열망은 형제신분을 이루는 승려 사제들의 가슴속에 다시 불을 붙여 왔으며, 이 신앙 전반에 이루어진 교육으로 인하여 종교적인 진화에 새로운 진보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94:12.6 (1041.4) 이 기록이 쓰인 당시에, 아시아의 대부분은 불교에 희망을 걸고 있다. 과거의 암흑기 기간 동안 그토록 영웅적으로 잘 견디어 온 이 고귀한 신앙이, 인도의 위대한 선생의 제자들이 한때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는 그에게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확대된 조화우주적 실체의 진리를 다시 받아들일 것인가? 오래 된 이 신앙이, 자기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으려고 애써온 하느님과 절대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상쾌한 자극에 다시 한 번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94:12.7 (1041.5) 온 유란시아가, 진화적 기원을 가진 여러 종교와의 접촉으로 19세기 동안 쌓여진 신조와 독단론에 방해받지 않은 메시지, 미가엘의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불교, 그리스도교

그리고 힌두교에게, 아니 신앙을 가진 모든 민중에 이르기까지, 예수에 관한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 예수의 복음의 영적 실체가 제시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94:12.8 (1041.6)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95 편 레반트에서의 멜기세덱의 가르침

95:0.1 (1042.1) 동부 아시아에서는 인도에서 많은 종교들과 철학들이 일어났듯이, 레반트 지역은 서방 세계의 신앙 본산지였다. 살렘 선교사들이 남서부 아시아의 전역으로 퍼져나가, 팔레스타인과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와 이란 그리고 아라비아를 지나가면서,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복음인 기쁜 소식들을 그 모든 곳에 선포하였다. 이 지역들 중에서 일부는 그들의 가르침에 의한 결실이 맺혀졌으며; 다른 어떤 지역들에서는 때에 따라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실패가 지혜의 부족에서 기인되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환경이 그들의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이었다.

제 1 장.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살렘 종교

95:1.1 (1042.2) 기원전 2,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의 종교들은 셋-사람들의 가르침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으며 주로

두 집단의 침입자들의 원시적인 신앙들의 영향 아래에 있었는데, 서부 사막지대로부터 스며들어온 베도원 셈족들과 북쪽으로부터 내려온 말을 타는 야만인들이었다.

95:1.2 (1042.3) 그러나 일주일 중에서 일곱 번째 날을 숭배하는 초기 아담-사람 민족들의 관습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직, 멜기세덱 시대 동안, 일곱 번째 날이 가장 불운한 날로 간주되었을 뿐이다. 금기에 의해 지배되었다; 불길한 일곱 번째 날에 여행을 떠나거나 음식을 요리하거나 또는 불을 피우는 일은 불법적인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일곱 번째 날인 샤바툼에 대한 바빌로니아의 관례로부터 그들이 발견한 메소포타미아의 금기들 대부분을 팔레스타인으로 가져왔다.

95:1.3 (1042.4) 살렘 선생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종교들을 많이 세련되게 하고 증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민족들로 하여금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영구적인 인식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가르침은 150년 이상 동안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다양한 신(神)들을 믿는 옛 신앙들에게 점차적으로 길을 비켜주게 되었다.

95:1.4 (1042.5) 살렘 선생들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하느님들의 숫자를 크게 줄였는데, 한 때는 주요 신(神)들을 일곱 개로 줄이기도 하였으며: 그것들은 벨, 샤마쉬, 나부, 아누, 에아, 마르덕, 그리고 썬 등이었다. 새로운 가르침이 최고점에 달하였을 때, 그들은 이들 하느님 중에서 셋을 다른 것들보다 최극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바빌로니아의 삼신(三神) 즉: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의 신인 벨과 에아 그리고 아누였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삼신들이 다른 지역에서 생겨났는데, 모두가 안드-사람들과 수메르인들의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을 회상한 것이었고 그리고 세 개의 동심원으로 된 멜기세덱의 휘장을 믿은 살렘 사람들의 믿음에 기초를 두었다.

95:1.5 (1042.6) 하느님들의 어머니이며 성적(性的)인 풍요로움의 영(靈)인 이쉬타르에 대한 인기(人氣)를 살렘 선생들이 충분히 극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은 이러한 여신에 대한 경배를 제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그 이웃들은 성교(性交) 경배의

변장된 형태들을 완벽하게 벗어난 적이 없었다. 모든 여자들이 일생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낯선 사람들의 품에 안기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의 보편적인 실천 관행이 되었다; 이것은 이쉬타르가 요구하는 헌신으로 여겨졌고, 풍요로움이 주로 이러한 성적인 희생 행위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

95:1.6 (1043.1) 멜기세덱 가르침의 초기 진보는, 키시에 있는 학교의 영도자였던 나보닷이 성전에서 유행하는 매춘 실천 관행들에 대해 합의된 공격을하기로 결정할 때까지는 매우 만족스럽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갱신을 이룩하려는 살렘 선교사들의 노력은 실패하였으며, 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영적 가르침과 철학적 가르침들은 이러한 실패의 좌절감 속에서 패배를 맛보게 되었다.

95:1.7 (1043.2) 살렘 복음의 이러한 실패 뒤에 이쉬타르 예배종파가 즉시로 엄청나게 확장되었는데, 그 숭배 예식은 이미 팔레스타인에서는 아쉬토렛으로,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로, 북부의 부족들에게는 아스타르테라는 이름으로 퍼져 있었다. 바빌로니아의

사제들이 다시 한 번 점성술로 기울어진 것은 이쉬타르에 대한 경배가 이렇게 회복된 것과 관련이 있었는데; 점성술은 메소포타미아의 마지막 대 부흥을 체험하였고, 점치는 일이 유행하게 되었으며, 사제 계급은 여러 세기 동안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다.

95:1.8 (1043.3) 멜기세덱은 자기 추종자들에게 유일하신 하느님, 만유의 아버지이시며 조물주이신 분을 가르치라고, 오로지 신앙을 통하여 신성한 은혜의 복음만을 전파하도록 경고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하는, 속도가 느린 진화를 갑작스러운 혁명으로 대치시키려는 실수를 종종 범하였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활동한 멜기세덱 선교사들은 그 민족에게 너무 높은 도덕적 표준을 제시하였다; 너무 많은 일을 시도하였고, 그들의 고귀한 동기들은 실패로 빠져들었다. 그들에게는 정확한 복음을 설파하라는, 우주 아버지의 실체의 진리를 선포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관례를 개선하는, 겉보기에 가치 있는 동기에 얽히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들의 위대한 사명은 옆길로 빠지고 실질적으로 좌절과 망각으로 거의 사라졌다.

95:1.9 (1043.4)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키쉬에 있는 살렘 본부는 사라지게 되었고,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전파는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살렘 학교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계속 잔존하였다. 여기저기로 흩어진 적은 무리들이 유일하신 창조자에 대한 자기들의 믿음을 고수하였고, 메소포타미아 사제들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성에 대항하여 투쟁하였다.

95:1.10 (1043.5) 구약 성서의 시편들 대부분을 바위 위에 새긴 사람은 바로 자기들의 가르침이 거부된 뒤에 활동하던 살렘 선교사들이었으며, 후대에 이르러서는 그곳에서 히브리 사제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것들을 발견하였고 그 후에는 유대인들이 썼다고 주장하는 찬미의 시(詩)들을 수집하면서 그것들을 거기에 포함시켰다. 바빌로니아에서 가져온 이 아름다운 시편들은 벨-마르덕의 신전에는 새겨지지 않았다; 그것들은 초기 살렘 선교사들의 후손들의 작품이었고, 바빌로니아 사제들이 수집한 마술적인 것들과는 현저하게 대조적인 것이었다. 읊기는 키쉬에 있는 살렘 학교와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가르쳐진 가르침이 매우 잘 반영된 작품이다.

95:1.11 (1043.6)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적 문화 대부분은 아메니뫼과 이크나톤의 활동을 통하여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히브리 문학과 경배 예식 속으로 흡수되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초기의 안드-사람 메소포타미아인들로부터 유래되었지만 유프라테스 계곡을 점령한 후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잃어버렸던 사회적 의무에 대한 가르침을 두드러지게 보존하였다.

제 2 장. 초기의 이집트 종교

95:2.1 (1043.7)

지원적인 멜기세덱 가르침들은 이집트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깊은 뿌리를 내렸고, 그것들은 나중에 그곳으로부터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나일 계곡의 진화 종교는 낫-사람과 아담-사람 그리고 후대에는 유프라테스 계곡의 안드-사람 민족의 우월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주기적으로 증강되었다. 때로는 수메르인들이 이집트의 시민 행정-관리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 시기에 세계의 가장 많은 종족들이 인도에서 섞인 것처럼, 이집트에서는 유란시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종교 철학 유형들이 거의 완벽하게 혼합되는 형태가 조성되었으며, 그것은 나일 계곡으로부터 세계의 여러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유대인들은 세상 창조에 대한 그들의 관념 대부분을 바빌로니아로부터 받아들인 반면, 신성한 섭리의 개념은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유래하였다.

95:2.2 (1044.1) 이집트로 하여금 살렘 가르침에 대하여 메소포타미아보다 더 호의를 보이게 한 것은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성향보다는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성향이였다. 이집트의 각 부족 영도자들은, 권좌를 차지하는 투쟁을 벌인 후에는, 자기 부족의 하느님이 다른 모든 하느님들의 기원적인 신(神)이며 창조자라고 선포함으로써 자기 왕좌를 영속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초(超)하느님에 대한 관념에 점점 더 익숙해지게 되었으며, 우주적 창조자 신(神)에 대한 후대의 교리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었다. 유일신(唯一神) 관념은 이집트에서 여러 세기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였는데,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항상 토대를 이루기는 하였지만 다신론(多神論)의 진화하는 개념을 제대로 지배하지는 못하였다.

95:2.3 (1044.2) 이집트 사람들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의 하느님들을 경배해 왔으며; 더욱 특별한 것은, 여러 개로 분리된 부족들 각각이 하나의 특별한 집단적 하느님을 섬겼는데, 하나는 황소를 경배하고 다른 하나는 사자를, 세 번째는 숫양을 그리고 그 다음도 계속하여 다른 것을 섬겼다. 훨씬 전에는 그들도 아메리카 원주민과 매우 흡사한, 토템을 섬기는 부족들이었다.

95:2.4 (1044.3) 때가 되자, 이집트 사람들은 벽돌을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 놓인 시신이 탄산소다 성분을 함유한 모래의 작용에 의해 보호—썩지 않게 보존됨—되는 반면, 벽돌로 지은 무덤 속에 장사된 것은 부패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관찰은 그것들을 실험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나중에 시체를 향료로 처리하는 실천 관행을 낳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시신을 보존함으로써 그를 미래의 삶으로 용이하게 옮겨가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그 몸체가 부패한 후 먼 훗날에도 그 개별존재가 적절하게 정체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시체 옆에 매장용 조각품을 두었고 관(棺) 위에도 비슷한 모습을 새겨 두었다. 이러한 매장용 조각품을 만드는 일이 이집트의 예술을 매우 발전시키게 되었다.

95:2.5 (1044.4) 이집트 사람들은 무덤이 그 시신을 지켜주고 그 결과로 사후(死後)의 생존을 쾌적하게 해준다는 신앙을 여러 세기 동안 간직하였다. 신비적인 실천 관행들의 후대 진화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삶에 부담이 되는 것이었던 반면에, 무덤을 믿는 종교로부터 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출하는 것이 되었다. 사제들은 “지하의 세계에서 사람의 심장이 빠앗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믿는 마법의 문장을 관(棺)에 새기고자 하였다. 현재 이러한 마법적 문장들의 다양한 내용들이 사자(死者)의 책으로 보존되어 수집되었다. 그러나 나일 계곡에서는 일찍부터 마술적인 종교 예식이 양심과 성격의 영역 속에 상당히 포함되기 시작하였는데 그러한 의식이 그 당시의 종교 의식에 의해서 달성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정교한 무덤보다는 이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상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었다.

95:2.6 (1044.5) 이 시대의 미신적 관습들은 병을 고치는 수단으로 침을 뱉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관념은 이집트에서 기원이 되었고 그곳으로부터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로 전파되었다. 전설에 의하면, 호루스와 셋의 전투에서 젊은 하느님이

자기 눈을 잃어버렸지만, 셋이 정복당한 후에, 이 눈이 현명한 하느님인 토스에 의해 회복되었는데, 그가 상처에 침을 뱉음으로써 그것을 치료하였다는 것이다.

95:2.7 (1044.6) 이집트 사람들은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이 가치 있는 죽음에서 혼이 살아난 것을 나타낸다고 오랫동안 믿었다; 그들은 생존된 다른 사람들이 태양 속으로 흡수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어떤 기간 동안에는, 태양 숭배가 조상 경배의 한 형태가 되기도 하였다. 거대한 피라미드의 경사진 출입 통로가 똑바로 북극성을 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왕의 혼이 무덤에서 깨어났을 때 고정된 별의 별자리, 정지되어 있는 왕의 거처라고 생각되는 확정된 별자리로 똑바로 갈수 있게 하려고 하였다.

95:2.8 (1045.1) 태양의 비스듬한 광선이 구름 속에서 틈새를 통하여 땅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을 바라볼 때, 그들은 그것이 그 왕과 다른 의로운 혼들이 상승할 수 있는 천상(天上)의 계단이 내려오는 징조라고 믿었다. “페피 왕이 그것을 밟고 자기 어머니에게 올라가기 위해 그의 발밑에 층계를 이루도록 광채를 내려뜨렸다.”

95:2.9 (1045.2) 멜기세덱이 육신을 입고 나타났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보다 훨씬 높은 종교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체현에서 벗어나게 된 혼이 만약에 마술적인 처방으로 알맞게 무장된다면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피할 수 있고 오시리스의 재판실로 갈 수 있으며 그곳에서 만약에 "살인, 약탈, 거짓말, 간음, 도둑질, 이기심"의 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천국 세계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었다. 만약에 이 혼을 저울에 달아서 모자라는 것이 판명되면, 그 혼은 지옥으로, 삼키는 곳으로 보내진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것은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신앙과 비교할 때 미래의 삶에 대한 비교적 진보된 개념이었다.

95:2.10 (1045.3)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육체 속에 살았던 삶의 죄에 대하여 저승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개념이 이집트에서 히브리 신학으로 전래되었다. 심판이라는 말은 히브리 시편 문서 전체에서 꼭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으며, 특별한 그 성시(聖詩)는 이집트 사람에 의해 기록된 것이었다.

제 3 장. 도덕 개념의 진화

95:3.1 (1045.4) 이집트의 문화와 종교가 주로 메소포타미아의 안드-사람으로부터 유래되었고 히브리인들과 그리스인들을 통하여 그 후의 문명들에게 많이 전수되기는 하였지만, 이집트 사람들의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이상주의의 거의 대부분은 나일 계곡에서 하나의 순수한 진화적 발전으로 발생되었다. 안드-사람으로부터 기원된 많은 진리와 문화가 수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엘의 증여 전에 다른 모든 주변 지역에 있었던 비슷한 자연적 기법에 의해 나타났던 것보다 더욱 도덕적인 문화가 순전한 인간적 발전으로 이집트에서 진화되었다.

95:3.2 (1045.5) 도덕적 진화는 계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다. 높은 도덕 개념들이 사람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유래될 수 있다. 사람은 신성한 영이 그의 속에 내주하기 때문에, 영적 가치들을 진화시킬 수 있고,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적 삶으로부터 조화우주 통찰력이 유래할 수도 있다. 양심과 성격에 있어서의 그러한 자연적인 진화들은, 고대에 두 번째 에덴으로부터 그리고 후대에는 살렘에 있는 멜기세덱 본부로부터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들이 주기적으로 도래함으로써 증강되기도 하였다.

95:3.3 (1045.6) 살렘의 복음이 이집트로 들어가기 수천 년 전에, 그곳에서는 도덕적인 영도자들이 공의(公義)와 공정성 그리고 탐욕 회피 등을 가르쳤다. 히브리 경전이 쓰이기 3,000년 전에, 이집트인들의 금언은 이러하였다: “그 표준이 정의롭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 출세한다.” 그들은 친절함과 온화함 그리고 사려 깊은 분별력을 가르쳤다. 이 신(新)시대에 위대했던 선생들 중 한 사람의 메시지는: “정의를 행하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대하라”는 것이었다. 이 시대에 이집트인들의 3화음은 진리-정의-공정성이었다. 유란시아의 순전히 인간적인 모든 종교들 중에서 나일 계곡의 이러한 한 때의 인본주의의 사회적 이상과 도덕적 위엄을 능가할 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95:3.4 (1045.7) 이러한 진화하는 윤리적 관념과 도덕적 이상의 토양 속에서, 살렘 종교의 생존하는 교리들이 번성하였다. 선과 악에 대한 개념들은, “평화로운 자가 생명을, 죄 있는 자가 죽음을 받는 것이다.” “사랑받는 것을 일을 행한 자는 평화로우며; 미움 받는 일을 행한 자는 죄가 있는 것이다.” 나일 계곡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여러 세기동안에 옳고 그른 후대의 개념들—선과 악—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이 솟아나는 윤리와 사회적 표준에 따라서 살아갔었다.

95:3.5 (1046.1) 이집트는 지적이고 도덕적인 반면에 그렇게 영적이지는 못하였다. 6,000년 동안 오직 네 사람의 선지자들이 이집트인들 속에서 출현하였을 뿐이다. 그들은 아메니몹을 한 동안 따랐고; 오크반은 죽었으며; 이크나톤은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하나의 짧은 세대 동안 가슴이 내키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였고; 모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지만,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살렘의 가르침 대신에 아브라함이 그리고 후대에는 요셉이 이집트 전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종교적인 상황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살렘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이주민들의 수정된 도덕적 표준들과 합쳐져 진화된 매우 높은 문화를 접하게 되었다. 나일 계곡의 이 초기 선생들은 양심이 하느님의 명령, 신(神)으로부터의 소리라고 선포한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제 4 장. 아메니몹의 가르침

95:4.1 (1046.2) 때가 이르자 이집트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아메니몹이라고 불리는 한 선생이 출현하였다. 이

선각자(先覺者)는 양심을 강화시켜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최고의 지점으로 끌어 올렸으며, 죄에 대해 징계할 것을 가르쳤고, 태양 신(神)에게 요청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였다.

95:4.2 (1046.3) 아메니뎌는 부유함과 행운이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쳤으며, 이 개념은 나중에 나타난 히브리 철학을 속속들이 물들였다. 고귀한 이 선생은 하느님-의식함이 모든 행위에서 결정을 내리는 요소라는 것; 모든 순간마다 하느님에 대한 책임, 그 현존의 실현 안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믿었다. 이 현자의 가르침은 그 후에 히브리어로 번역되었고 구약이 기록을 위하여 축소되기 훨씬 전에 그 민족의 성스러운 책이 되었었다. 이 착한 사람의 주요 설교는 정부가 맡긴 직책에서 정직하고 성실할 것을 자기 아들에게 훈계하는 일과 관계가 있었고, 먼 옛날의 이러한 고귀한 정서는 모든 현대 정치가에게도 명예가 될 것이다.

95:4.3 (1046.4) 나일의 이 현자는 "부(富)는 자기 스스로 날개를 달고, 그리고 날아가 버린다"—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다—라고 가르쳤다. 그의 위대한 기도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언어”에서 “하느님의 활동”을 향해 돌아서라고 훈계하였다. 실제로 그는 일은 사람이 꾸미지만 결과는 하느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가르쳤다. 히브리어로 번역된 그의 가르침들은 구약성경 잠언서의 철학을 결정지었다. 그리스어로 번역되어서, 그것들은 그 후의 모든 헬라의 종교 철학을 물들였다. 후대의 알렉산드리아 철학자인 필로는 지혜서의 사본을 하나 갖고 있었다.

95:4.4 (1046.5) 아메니뎌은 진화적인 윤리들과 계시적인 도덕을 보존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자기가 기록한 문서들을 통하여 히브리인들과 그리스인들 모두에게 그것들을 전해주었다. 그는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종교적 선생들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서방 문명—그 중 서방의 종교적 신념의 정점으로 진화시킨 히브리인들, 유럽의 가장 위대한 정상에 이르는 순전히 철학적인 사상으로 발전시킨 그리스인들—성장에 있어서 두 가지 중대한 교리들이 되는 후대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95:4.5 (1046.6) 히브리 잠언서 중에서, 15장과 17장과 20장 그리고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는 아메니뎨의 지혜서에서 거의 말 그대로 복사한 것이다. 히브리 시편 책의 첫 번째 시는 아메니뎨가 쓴 것이며 이크나톤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제 5 장. 비범한 사람 이크나톤

95:5.1 (1047.1) 아메니뎨의 가르침들은 이집트인들의 마음속에서 그 위치를 서서히 잃고 있었는데, 그때 이집트인이면서 살렘 사람이었던 한 의사의 영향력을 통하여, 왕족 가문의 여인이 멜기세덱의 가르침을 지지하였다. 이 여인은 자기 아들, 이집트의 파라오, 이크나톤에게 한분 하느님에 대한 이들 교리들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하였다.

95:5.2 (1047.2) 멜기세덱이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사라진 이후로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도 이크나톤만큼 살렘의 계시된 종교에 대한 개념을 그토록 놀라울 정도로 분명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어떤 면에서, 젊은 이 이집트인 왕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범한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영적 쇠퇴가 증대되던 시기

동안에, 그는 이집트에서 엘 엘리온,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교리를 존속시켰으며, 그리하여 그 다음의 미래에 미가엘이 증여되는 종교적 배경에 지극히 중대한 유일신 개념의 철학적 방향을 유지시켰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이집트로 데려가, 그곳에서 이크나톤의 영적인 후계자들 중의 일부가 그를 만나고 유란시아에 대한 그의 신성한 임무의 어떤 위상들을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게 한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중에서도, 이러한 업적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95:5.3 (1047.3) 멜기세덱과 예수 사이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모세는 히브리 인종 세계와 이집트의 왕족 가문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선물이었다; 만약에 이크나톤이 모세의 융통성과 능력을 소유했었다면, 그는 분명히 자신의 정치적인 천재성과 놀라운 종교적 지도력을 현시하였을 것이며, 그렇게 되었다면 이집트는 그 시대에 유일신 개념을 갖는 위대한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가 그의 필사자 삶 중에 더 많은 부분을 이집트에서 사셨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95:5.4 (1047.4)

전체 역사 속에서 어떤 왕도 이 비범한 이크나톤처럼 국가 전체를 다신교로부터 유일신교로 옮겨가는 일을 그토록 조직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하였다. 이 젊은 왕은 가장 놀랄만한 결단력에 의해 과거를 청산하였는데, 자기 이름을 바꾸고 수도를 떠났으며 전반적으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였고 전체 민족을 위하여 새로운 예술과 문학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그는 너무 서둘렀으며; 그가 죽은 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많은 것들을 설립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 민족의 물질적인 안정성과 번영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였는데, 그 모든 것들은 나중에 역경과 고난이 이집트인들에게 몰아닥쳤을 때 그의 종교적인 가르침에 대항하여 불리한 반응을 나타냈다.

95:5.5 (1047.5)

놀라울 정도로 분명한 통찰력과 비범하게 일사불란함을 소유하였던 이 사람이 만일 모세의 정치적인 총명성을 가졌더라면, 그는 서방 세계에서의 진리 계시와 종교 진화의 전체 역사를 바꾸어 놓았을 것이다. 그는 자기 일생 동안에 사제들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었고 그들을 대개 신용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예배종파들을 비밀리에 유지시켰고 그 젊은 왕이 세력을

잃자마자 활동을 재개하였으며, 그의 통치 기간에 유일신교를 세움에 있어서 이집트가 그 후에 겪었던 모든 분쟁 요소들을 재빨리 결합시켰다.

95:5.6 (1047.6) 매우 현명하게도, 이크나톤은 태양-하느님을 가장하여 유일신교를 세우려고 노력하였다. 모든 하느님들을 흡수하여 태양을 섬기도록 함으로써 우주 아버지에 대한 숭배에 접근해 보고자 하는 이 결정은 살렘 사람 의사의 조언에 기인된 것이었다. 이크나톤은 신(神)의 아버지신분과 어머니 관계에 관하여 그 당시에 실존하던 아톤 신앙의 일반화된 교리들을 채택하였고, 사람과 하느님 사이의 긴밀한 신앙적 관계를 실현하는 하나의 종교를 창출하였다.

95:5.7 (1048.1) 이크나톤은 외부적으로는 태양-하느님인 아톤을 경배하는 동시에, 자기 연관-동료들로 하여금 위장된 방법으로 유일하신 하느님, 아톤의 창조자와 만유의 최극이신 아버지를 경배하게 할 만큼 매우 현명하였다. 선생이면서 왕이었던 이 젊은이는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한분 하느님”이라는 제목의 주해서를 썼고, 그 책은 31장으로 되어 있으며, 힘을 다시 잡은 사제들이 그것을

철저히 없애버렸다. 또한 이크나톤은 137편의 찬송 시를 썼으며, 그 중에 12개는 현재 구약 성서의 시편에 보존되어 있고 히브리인 저자의 공적으로 되어 있다.

95:5.8 (1048.2) 이크나톤의 종교가 일상생활에 대하여 주는 최극의 말은 “정의”였으며, 그는 올바른 행위에 대한 개념을 민족뿐만 아니라 국제적 윤리까지 포용하도록 신속하게 확대시켰다. 이 세대는 놀라울 정도로 개인적인 경건성을 보여주었으며, 지능이 있는 더욱 많은 남자와 여자들 사이에서는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를 알고자 하는 참된 열망이 특성을 이루었다. 그 시대에는 율법적인 면에서 볼 때 사회적인 지위나 부유함이 이집트인들에게 어떤 혜택도 전혀 주지 못하였다. 이집트의 가정생활은 도덕적인 문화를 많이 보존하고 증강시켰으며 후대에 팔레스타인에서의 유대인들의 뛰어난 가정생활에 감화를 주었다.

95:5.9 (1048.3) 이크나톤이 제시한 복음의 치명적인 취약성은 그것의 가장 중심적인 진리, 아톤이 이집트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짐승들 그리고 이집트의 땅 외에도 모든 이방 나라들을 포함하는 온 세상의 창조자이며, 그가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 심고 그들의 필요를 모두 제공한다.”는 가르침이었다. 신(神)에 대한 이러한 개념들은 고상한 것이고 숭고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민족적인 개념은 아니었다. 종교에 있어서 그러한 범-국제적인 정서는 전쟁터에서 이집트 군인들의 사기를 증강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반면에 그것들은 사제들이 젊은 왕과 그의 새로운 종교에 대항할 수 있는 효력적인 무기를 제공하였다. 그는 후대의 히브리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신(神) 개념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은 너무 앞선 것이었기 때문에 국가를 건설하는 사람의 목적을 만족시키기에는 적당하지 않았다.

95:5.10 (1048.4) 유일신의 이상이 이크나톤의 죽음으로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하느님에 대한 관념은 많은 집단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이크나톤의 사위는 사제들을 따라서 옛날 하느님들의 경배로 다시 돌아갔고, 자기 이름을 투탄카멘이라고 바꿨다. 수도(首都)는 다시 데베로 되돌아갔고, 사제들은 점점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 결국에는 이집트 전체의 7분의 1을 소유하기에 이르렀으며,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 계층의 사제들 중 하나가 왕좌를 차지하게 되었다.

95:5.11 (1048.5) 그러나 사제들은 유일신 개념의 물결을 충분히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점차적으로 자기들의 하느님들을 합병시키고 연결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느님들의 계통은 점점 더 축소되었다. 이크나톤은 하늘들의 불타는 원반을 창조자 하느님과 연결시켰으며, 이러한 관념은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계속 불타올랐는데, 심지어 젊은 개혁자가 죽은 후 한참 지난 후에는 사제들의 경우에도 그렇게 되었다. 유일신교의 개념은 이집트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그리고 세계 속에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 그것은 동일한 신성한 아버지, 이크나톤이 모든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만들려고 그토록 열광적으로 전파하였던 유일하신 하느님의 창조자 아들이 도래할 때까지도 계속 존속하였다.

95:5.12 (1048.6) 이크나톤의 교리의 취약점은, 오직 교육을 받은 이집트인들만이 그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진보된 종교를 제안하였다는 사실에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일반 대중들은 실제로 그의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과 악의 하느님인 셋의 손에 의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였다가 초자연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하는 이시스와 그녀의 동행자 오시리스에 대한 옛날의 경배로 사제들과 함께 돌아갈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것이다.

95:5.13 (1049.1) 모든 사람들이 불멸한다는 가르침은 이집트인들에게 너무 진보적인 것이었다. 오직 왕들과 부자들만이 부활을 보장받는다고 믿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의 날에 대비하여 그들의 시신을 그토록 신중하게 약품으로 처리하고 무덤 속에 보존하였다. 그러나 이크나톤이 가르쳤던 일반적인 구원과 부활이 결국에는 설득력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는 후대의 이집트인들이 말 못하는 동물들도 생존된다고 믿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95:5.14 (1049.2) 이집트의 통치자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유일하신 하느님을 경배하도록 노력한 것이 겉으로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의 작품의 반향이 팔레스타인과 그리스 양쪽에서 존속되었다는 사실과, 그리하여 나일의 진화적인 문화와 유프라테스의 계시 종교가 혼합된 것을 나중에 서방의 민족들에게

전해주는 매개자 역할을 이집트가 하였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95:5.15 (1049.3) 나일 계곡에서 도덕적 발전과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 이 위대한 시대의 영광은, 히브리인들의 민족적인 삶이 시작될 무렵에 급속도로 소멸되었으며, 그 후에 그들이 이집트에 머무르는 동안 이 베도원 사람들은 이러한 가르침의 대부분을 가져갔으며 이크나톤의 교리들 대부분을 자기들의 인종적 종교 속에 영속시켰다.

제 6 장. 이란에서의 살렘 교리

95:6.1 (1049.4) 일부분의 멜기세덱 선교사들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를 거쳐 거대한 이란 평원으로 들어갔다.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살렘 선생들은 이란에서 일을 진행시켰고, 국가 전체가 멜기세덱 종교로 기울어지게 되었을 때 통치자들이 바뀌게 되어 갑자기 격심한 박해를 일으켰고 그것이 살렘 예배종파의 유일신교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종결시켰다. 아브라함의 계약에 대한 교리가 페르시아에서 실질적으로 사라졌을 때, 그리스도 이전 6세기경 도덕적 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위대한 시대에 조로아스터가 나타나 타다 남은
살렘 복음의 불씨로부터 기운을 소생시켰다.

95:6.2 (1049.5)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이 사람은 박력 있고
모험심이 강한 젊은이였는데, 그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우르에 맨 처음 순례여행에서 칼리가스티아와 루시퍼
반란에 관한 전승들—다른 여러 가지 전승들과 함께—을
배우게 되었으며, 그 모든 것들은 그의 종교적인 본성을
강하게 자극하였다. 따라서 우르에 있을 때 꾸 꿈의 결과로,
그는 북부 지역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민족의
종교를 개편하는 일을 착수하는 계획을 확정짓게 되었다.
그는 공의(公義)의 하느님에 대한 히브리 관념, 신성에
대한 모세의 개념을 이미 흡수한 상태에 있었다. 최극
하느님에 대한 관념이 그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있었으며,
다른 모든 하느님들을 그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들었던
마귀들의 계급으로 몰아넣어, 마귀들로 격하시켰다. 그는
우르에 남아 있던 일곱 주(主) 영들에 관한 이야기를
배웠으며, 따라서 그는 일곱 명의 최극 하느님들의
은하계를 만들면서 아후라-마즈다를 그 꼭대기에 두었다.
그는 이러한 하위의 하느님들을 정의의 법, 선한 생각,

고귀한 정부, 신성한 개인성, 건강 그리고 불멸성에 대한 이상(理想)과 연관시켰다.

95:6.3 (1049.6) 그리고 새로운 이 종교는 기도와 경배 예식이 아니라 일종의 행동—활동—이었다. 그 종교의 하느님은 최극 지혜의 존재였고 문명의 후원자였으며; 그것은 악(惡)과 게으름 그리고 퇴보와 과감하게 싸우는 투쟁적인 종교 철학이었다.

95:6.4 (1049.7) 조로아스터는 불을 경배하도록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불꽃을 우주적이고 최극의 통치성을 갖는 순수하고 현명한 영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후대의 그의 추종자들이 상징적인 불을 존경하고 경배하였던 것은 정말로 사실이었다.) 마침내, 이란인 영주의 개종이 있고 나서부터, 새로운 이 종교는 무력에 의해 퍼져나갔다. 그리고 조로아스터는 자신이 “빛의 주님의 진리”라고 믿는 그것을 위하여 싸우다가 용맹스럽게 죽었다.

95:6.5 (1050.1) 조로아스터교는 일곱 주(主) 영들에 관한 달라마시아와 에덴의 가르침들을 영속으로 간직하였던 유란시아의 유일한 교리이다. 그것은 삼위일체 개념이

진화하는데 실패하였지만 한편, 칠중 하느님에게는 특정한 길에서 접근하였다. 근원적인 조로아스터교는 순수한 이원론이 아니었다; 비록 초기의 가르침이 악(惡)을 선(善)의 어떤 시간 조화-협동으로 묘사하기는 하였지만, 악은 분명하게 선의 궁극적 실체 안에 영원으로-가라앉아있는 것이었다. 후대에 와서야 비로소, 선과 악이 동등한 조건 위에서 다투는 것이라는 믿음이 신임을 얻게 되었다.

95:6.6 (1050.2) 천국과 지옥에 대한 유대의 전승들 그리고 히브리 경전에 기록된 마귀들에 대한 교리는, 루시퍼와 칼리가스티아에 관한 잔존한 전승들 위에 기초를 둔 반면, 대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인에 의해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통치를 받는 동안 조로아스터교로부터 유래되었다. 조로아스터는 이집트인들처럼 “심판의 날”을 가르쳤지만, 그는 이 사건을 세상의 끝과 연결하였다.

95:6.7 (1050.3)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터교를 뒤이은 종교조차도 그것에 의해 현저하게 영향을 받았다. 이란의 사제들이 조로아스터의 가르침들을 폐지시키고자 하였을 때, 그들은 미트라에 대한 옛날의 경배 체제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미트라 숭배는 레반트 지역과 지중해 지역 전체에 퍼졌는데,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동시대에 존재한 때도 있었다. 그리하여 조로아스터의 가르침들은 세 개의 위대한 종교들 즉: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그리고 그것들을 통한 마호멧교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었다.

95:6.8 (1050.4) 그러나 조로아스터의 고양된 가르침들과 고상한 성시(聖詩)들은, 조로아스터가 결코 지지를 얻으려고 수그린 적도 없었던 궤변에 대한 믿음의 향연과 결부되어, 죽음에 대한 엄청난 공포를 지닌 파시교도에 의해 그의 복음이 현대에 와서 왜곡된, 그러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95:6.9 (1050.5) 위대한 이 사람은 그리스도 이전 6세기경에 출현하여 영속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나는 길을 자신의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에겐 살렘의 빛이 너무나 희미하게 타고 있을 때 충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꺼지는 일을 막아주었던 독특한 집단들 중의 하나였다.

제 7 장. 아라비아에서의 살렘 가르침

95:7.1 (1050.6)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멜기세덱의 가르침은 비교적 최근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확립되게 되었다.

그리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라비아에서도 살렘 선교사들은 지나친-조직에 대한 마키벤타의 지시를 오해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군사력이나 정부의 강제적인 집행을 통하여 복음을 확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을 거부하라는 그의 훈계를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함으로써 그러한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95:7.2 (1050.7) 심지어는 중국이나 로마에서도, 바로 그 살렘에 그토록 가까이 위치한 이 사막에서보다 더 완벽하게 멜기세덱의 가르침이 실패하지는 않았다. 동방과 서방에 있는 민족들 중에서 다수가 각각 불교도와 그리스도 교인이 된 오랜 후에도, 아라비아 사막은 마치 수천 년 전의 상태가 계속되는 듯하였다. 각 부족들은 옛날의 주물을 경배하였고, 수많은 각 가정들은 그들 자신의 가신(家神)들을 섬기고 있었다. 바빌로니아의 이쉬타르, 히브리의 야훼, 이란의 아후라,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한 개념이 다른 것들을 충분히 대치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95:7.3 (1051.1)

아라비아 전역의 여기저기에서 가정들과 씨족들이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어렵פות한 관념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한 무리들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와 조로아스터에 관한 전승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예수 공동체의 복음에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수많은 중심지들이 있었지만, 사막 지역의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은 지중해 지역의 나라들에서 선교사들로 활동하였던 사람들의 타협적이고 혁신적인 태도와 비교해 볼 때 엄격하고 완고한 집단이었다. 예수의 추종자들은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의 명령을 더욱 진지하게 수행하였으며, 그들이 그것을 전파함에 있어서 보다 더 자비로웠고, 그들 스스로가 궁리해낸 부차적인 사회적 요구조건에 덜 가혹했더라면, 그랬다면 아라비아도 그들 중의 하나인, 많은 땅들이 목수의 아들의 쉬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95:7.4 (1051.2)

위대한 레반트인의 유일신교가 아라비아에서 뿌리를 내리는 데 실패하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막 지대는 하나의 신앙을 산출해 낼 수 있었으며, 사회적인 요구 조건이 적었지만, 그래도 역시 유일신적이었다.

95:7.5 (1051.3) 그 사막 지대의 원시적이고도 조직되지 않은 신앙들에 관한 부족적, 인종적, 또는 국가적인 특성이 꼭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거의 모든 아라비아 부족들이 메카에 있는 어떤 사원의 검은 돌 주물에게 기꺼이 제공하고자 하는 독특하고도 일반적인 존중이었다. 그 통속적인 접촉과 존경이 이루어지는 이 장소로 인하여 나중에는 이슬람 종교가 세워지게 되었다. 화산의 영인 야훼는 셈족 유대인의 것이었고, 카바 바위는 그들의 사촌인 아랍 족속의 것이 되었다.

95:7.6 (1051.4) 이슬람의 강점은 오직 유일한 신(神)인 알라에 대한 선명하고도 뚜렷한 관념이었고; 그것의 약점은 여자를 격하시킨 점과 함께, 그 보급을 위해 군사적인 기세를 이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확고부동하게 만유의 유일하신 우주적 신(神),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보이는 존재들을 아시는 분. 자비로우시고 연민이 많으신 분”을 끊임없이 제시해 왔다. “하느님은 참으로 모든 인류에게 풍성한 선을 베푸신다.” “그리고 내가 아플 때 그 분이 나를 고쳐주신다.” “세 사람이 같이 이야기할 때에는 언제든지, 하느님께서 네 번째 존재로 계시는데,” 그 분이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또한 보이시는 분일뿐만 아니라 숨어 계시는 분”때문이 아니겠는가?

95:7.7 (1051.5)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96 편 야훼—히브리인의 하느님

96:0.1 (1052.1) 신(神)을 상상함에 있어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모든 하느님들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는 다른 모든 하느님들을 자기 부족의 신(神) 아래에 복종시키며, 마지막으로 최종적이며 최극 가치를 갖는 유일하신 하느님만을 남기고 다른 모든 것들을 배제시킨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에 대한 자기들의 더욱 숭고한 개념 속으로 모든 하느님들을 합성하였다. 마찬가지로 힌두인 들은 자신들의 잡다한 신(神)들을 리그-베다에 표현된 “신들에 대한 하나의 영성(靈性)” 속으로 합성시킨 반면,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벨-마르덱이라는 보다 집중된 개념으로 자기 하느님들의 수를 줄였다. 유일신 론의 이 관념들은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살렘에 출현한 후로 오래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에 퍼졌다. 그러나 신(神)에 대한 멜기세덱의 개념은 포함시키고 복종시키고 제거하는

진화적인 철학의 개념과는 달랐으며; 오로지 창조적인 힘에 기초를 두었고, 곧 메소포타미아와 인도 그리고 이집트의 가장 높은 신(神) 개념들에 영향을 주었다.

96:0.2 (1052.2) 살렘 종교는 켄-사람들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가나안-사람들에 의해 하나의 전통으로 존경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멜기세덱이 육신화된 목적들 중의 하나였는데: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종교가 그렇게 조성되어 그 유일하신 하느님의 한 아들이 이 세상에 증여되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미가엘은 자신이 나타나게 될 그 사람들 중에서 우주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전에는 유란시아에 오실 수가 없었다.

96:0.3 (1052.3) 살렘 종교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켄-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신조로 지속되었고, 나중에 히브리인들에게 받아들여진 이 종교는 처음에는 이집트인의 도덕적 가르침에 의해; 나중에는 바빌로니아의 신학 사상에 의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과 악에 대한 이란인의 개념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히브리 종교가 사실상 아브라함과 마키벤타 멜기세덱 사이의 계약에 입각한 것이고, 진화적으로는 많은 독특한 상황들로부터 자라난

것이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전체 레반트 지역의 종교와 도덕 그리고 철학으로부터 자유로이 빌려온 것이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와 이란의 도덕적 생각과 종교적 생각이 서방 민족들에게 전해진 것은 히브리 종교를 통해서이다.

제 1 장. 셈족 사이에서의 신(神) 개념들

96:1.1 (1052.4) 초기의 셈족 사람들은 모든 것들 속에 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동물 세계와 식물 세계의 영들이 있었고; 자손을 낳게 하는 주인인 일년생(一年生) 영들이 있었다; 물과 공기의 영들이 있었다; 경외심과 경배를 받으려는 진실 그대로 만신(萬神)의 영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주 창조자에 관한 멜기세덱의 가르침이 이러한 하위의 영들 또는 자연 하느님들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파괴시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96:1.2 (1052.5) 히브리인들이 다신론으로부터 단일신교를 거쳐 유일신교로 발전한 것은 온전하고도 연속적인 개념적 발전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神) 개념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역행을 체험하였으며, 또한 모든 신(新)시대들마다 서로 다른 셈족 신자들 집단들

사이에서 하느님에 대한 다양한 관념들이 존재하였다. 때로는 수많은 단어들이 하느님에 대한 그들의 개념들에 적용되었으며, 이러한 다양한 신(神) 이름들은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유대인 신학의 진화에 맞도록 다음과 같이 정의(定意)될 것이다:

96:1.3 (1053.1) 1. 야훼는 남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부족들의 하느님이었는데, 그들은 이 신(神) 개념을 호렙산, 시나이 화산과 연관시켰다. 야훼는 셈족 부족들과 민족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의 경배를 요구한 수백 수천의 자연 하느님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였다.

96:1.4 (1053.2) 2. 엘 엘리온. 멜기세덱이 살렘에 머문 후 여러 세기 동안 신(神)에 대한 그의 교리는 다양한 형태들로 유지되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엘 엘리온, 하늘의 지고자 하느님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셈족 사람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야훼와 엘 엘리온을 같이 경배하였다.

96:1.5 (1053.3) 3. 엘 샤다이. 엘 샤다이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인지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느님에 대한 이 관념은 아톤에 대한 이크나톤의 교리에 의해 수정되고 엘 엘리온에 대한 개념

속에 체현되어 있는 멜기세덱의 가르침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았던 아메니몹의 지혜서의 교훈들로부터 유래된 합성물이었다. 그러나 엘 샤다이라는 개념이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 퍼지게 되자, 그것은 사막의 야훼 신앙으로 속속들이 물들게 되었다.

96:1.6 (1053.4) 이 시대에 있었던 종교의 지배적인 관념들 중의 하나는 신성한 섭리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개념이었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번영이 엘 샤다이를 잘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가르침이었다.

96:1.7 (1053.5) 4. 엘. 용어상의 이 혼돈과 개념상의 불투명성의 와중에서, 믿음이 깊은 많은 사람들은 신성(神性)에 대한 이들 진화하는 관념들의 모든 것을 경배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으며, 그리하여 이 복합적인 신(神)을 엘이라고 부르는 실천 관행이 자라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용어는 그 위에 다른 베도원의 자연 하느님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96:1.8 (1053.6) 5. 엘로힘. 키쉬와 우르에서는 아담과 멜기세덱 시대의 전승들 위에 기초를 둔 셋이면서-하나이신 하느님 개념을 가르친 수메르-갈대아 인이 오랫동안 잔존하였다.

이 교리는 이집트로 전수되었고, 이 삼위일체 개념은 그곳에서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엘로아라는 단수 개념으로 경배되었다. 이집트에서 철학을 하는 무리들과 히브리 혈통의 후대 알렉산드리아 선생들은 합일된 복수의 하느님들에 대한 개념을 가르쳤으며,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많은 충고자들은 이 삼위일체 개념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삼위일체자 엘로힘에 대한 개념은 그들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정치적인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되기까지는 히브리 신학의 실제적인 부분이 된 적이 없었다.

96:1.9 (1053.7) 6. 잡다한 이름들. 셈족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神)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을 싫어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때때로 수많은 명칭들을 사용하였는데, 그것들은: 하느님의 영, 주님, 주님의 천사, 전능자, 거룩하신 분, 지고자, 아도나이, 옛적으로 늘 계신이,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의 창조자, 키리오스, 야, 만군의 주, 하늘의 아버지 등이었다.

96:1.10 (1053.8) 여호와와는, 오랜 세월 동안 히브리 체험 속에서 최종적으로 진화된, 완성된 야훼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최근에 채택된 용어이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예수 시대 이후(以後) 1,500년경까지 사용되지 않았다.

96:1.11 (1054.1) 기원전 2,000년경까지, 시나이 산은 때때로 화산 활동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역에 머물렀던 후대에도 간헐적인 화산 분출은 발생하였다.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우리와 같은 폭음과 함께 솟아오르는 불과 연기는 주변 지역에 있는 베도원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야훼를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다. 호렙산의 이 영은 나중에 히브리 셈족 사람들의 하느님이 되었으며, 그들은 결국에는 그가 다른 모든 하느님들보다도 최극이라고 믿게 되었다.

96:1.12 (1054.2) 가나안-사람들은 오랫동안 야훼를 존경해 왔었으며, 비록 켄-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렘 종교의 초(超)하느님인 엘 엘리온을 다소 믿기는 하였지만, 가나안-사람들 대부분은 옛날의 부족 신(神)들에 대한 경배에 막연하게 집착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적인 개념의 하느님을 위하여 자기들의 민족적인 신(神)들을 기꺼이 버릴 생각이 거의 없었다. 그들은 우주적-신(神)을 받아들일만한 마음을

갖지 못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들은 계속하여 자기들의 부족 신(神)들을 경배하였는데, 야훼는 물론 시나이 산 화산의 영에 대한 베도원 목자들의 개념을 상징화한 금과 은으로 만든 송아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96:1.13 (1054.3) 시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하느님들을 경배하는 동시에, 히브리인들의 야훼도 믿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예언자들이 시리아 왕에게: “그들의 하느님들은 언덕의 하느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평야에서 싸운다면, 분명히 우리가 그들보다 강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96:1.14 (1054.4) 인류가 문화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보다 약한 하느님들은 하나의 최극 신(神)에게 종속된다; 위대한 주피터만이 하나의 감탄사로 존속된다. 일신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하위(下位) 하느님들을 영, 귀신, 숙명, 바다의 요정, 선녀, 농가의 요정, 난쟁이, 여자 요정, 흥안 등으로 유지시킨다. 히브리인들은 단일신교의 단계를 지나왔으며 야훼 이외에 다른 하느님들의 실존을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그들은 이러한 이방의 신(神)들이 야훼보다 낮다고 점점 더 믿게 되었다. 그들은 아모리

족속의 하느님인 케모쉬의 실재성을 인정하였지만, 그 하느님이 야훼보다 낮다고 주장하였다.

96:1.15 (1054.5) 야훼에 대한 관념은 필사자가 가진 하느님에 대한 모든 이론들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발전을 겪어왔다. 그 발전적인 진화에 비길 수 있는 것은 아시아에서 있었던 부다의 변형밖에 없는데, 야훼 개념이 최종적으로 우주 아버지의 관념으로 인도된 것처럼 그것은 결국 우주 절대자의 개념으로 인도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로 볼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신(神)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을 호렙 산의 부족 하느님으로부터 자비하고 사랑이 많으신 후대의 창조자 아버지 개념으로 바뀐 반면에, 그들이 그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데; 신(神)에 대한 이러한 진화하는 개념을 항상 계속하여 야훼라고 불렀다.

제 2 장. 셈 민족

96:2.1 (1054.6) 동방의 셈족 사람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동쪽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연합한 잘 조직되고 건장한 기마인들이었다. 우르 근처의 갈대아 사람들은 동쪽에 있는 셈족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진보된

사람들에 속하였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의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을 장악한 우월하고도 잘 조직된 혼합된 셈족 사람들의 집단이었다. 인종적으로 볼 때 셈족 사람들은 유란시아 민족들 중에서 가장 피가 많이 섞인 사람들에 속하였는데,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세계 인종들로부터 유전 인자들을 받은 상태였다.

96:2.2 (1054.7) 아라비아의 셈족 사람들은 북부의 약속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계속 반복하여 투쟁하며 올라갔지만, 보다 낮게 조직되고 더욱 고도로 문명화된 북부의 셈족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후에는 히타이트-사람들에 의해서 종종 쫓겨나게 되자, 현저하게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는 동안, 방랑하는 이 베도원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의 공공 사업에 계약 노동자가 되어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나일 계곡의 평범하고도 학대받는 노동자들로 매일같이 힘든 고생을 하는 노예 상태의 쓰라린 체험을 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뿐이었다.

96:2.3 (1055.1) 셈족 중 어떤 부족들이 그들의 독특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손들로 그리고 나중에는 히브리인,

유대인 그리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불린 것은 마키벤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시대 직후였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 전체의 인종적 조상이 아니었다; 이집트에서 포로가 되어 있었던 베도윈 셈족 사람들 전체의 조상도 아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그의 자손들이 후대의 유대인 민족의 핵심을 이룬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스라엘 씨족으로 편입되게 된 남자들과 여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집트에 머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집트로부터 북부 아라비아를 통과하여 여행한 그들의 셈족 연관-동료들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모세의 지도 체제를 따르기로 선택한 단순한 유목민들에 불과하였다.

96:2.4 (1055.2) 지고자인 엘 엘리온에 관한 멜기세덱의 가르침과, 신앙을 통하여 신성한 은혜를 받는 계약은, 얼마 안 있어서 히브리 국가를 형성하게 될 셈족 사람들이 이집트에 포로가 되었을 당시에는, 많이 잊힌 상태였다. 그러나 포로가 된 이 기간 동안에 이 아라비아 유목민들은 야훼에 대한 어렵פות한 전통적인 믿음을 자기들의 인종적인 신(神)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96:2.5 (1055.3) 야훼는 100개 이상의 독립된 아라비아 부족들에 의해서 경배되었으며, 히브리인과 이집트인의 혼합된 혈통을 포함하여 이집트의 보다 교양 있는 부류들 사이에서 유지되었던 멜기세덱의 엘 엘리온 개념의 잔재를 제외한다면, 히브리 포로 노예들인 일반 대중의 종교는 신비적이고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옛날의 야훼 예식이 변형된 것이었다.

제 3 장. 비할 데 없는 모세

96:3.1 (1055.4) 히브리 개념들과 최극 창조자에 대한 이상들의 시작은, 위대한 영도자이며 선생이며 조직가인 모세의 지도하에 이집트에서 셈족 사람들이 떠날 때부터 이루어졌다. 그의 어머니는 이집트의 왕족 출신이었으며, 그의 아버지는 베도원 포로들과 정부 사이에서 연락 업무를 맡아보는 셈족 혈통의 관리였다. 그리하여 모세는 우월한 인종적 근원으로부터 유래된 본질특성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조상은 매우 많이 피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집단에 속한다고 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가 이러한 혼합된 유형이 아니었다면, 그의 영도자관계하에 이집트로부터 도망쳐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간 그 베도원 셈족 사람들과 결국에는 연관하게 된 다양한

유목민들을 그로 하여금 잘 다루도록 하였던 그러한 특이한 다재다능함과 융통성을 보여주지 못했을 것이다.

96:3.2 (1055.5) 나일 왕국 문화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아버지의 민족과 함께 자기 땅을 포기하기로 선택하였다. 이 위대한 조직가가 자기 아버지 민족의 결국 이루어지는 해방을 위하여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때, 베도원 포로들은 그 이름에 걸 맞는 종교를 갖고 있지 못하였다; 실질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참된 개념이 없었고 세상에서의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다.

96:3.3 (1055.6) 어떤 영도자도 그보다 더 비참하고 기가 꺾이고 낙심하고 무지한 인간 집단을 갱생하고 향상시킨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노예들은 그들의 유전적인 혈통에 있어서 발전할 잠재 가능성들을 갖고 있었으며, 해방을 위한 폭동과 파업을 일으킬 날을 위하여 유능한 조직책의 무리들을 구성하는 준비에 있어서 모세의 지도를 받아왔던 충분한 숫자의 학식 있는 영도자들이 그곳에 있었다. 이 우월한 사람들은 자기 민족 태생이면서 감독자들로 일하는 직책에 고용되어 있었다; 모세가

이집트인 통치자들에게 미친 영향으로 인하여 약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96:3.4 (1056.1) 모세는 자기 동족인 셈족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 외교적으로 흥정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와 그의 형제는 이집트의 왕과 계약을 맺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그들은 평화적으로 나일 계곡을 떠나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집트에서의 봉사의 표시로 적당량의 돈과 물질을 받게 되어 있었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파라오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이집트를 배척하는 어떤 동맹에도 가담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왕은 나중에 이 조약의 이행을 거절하기에 알맞은 사건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의 첩자들이 베도원 노예들 속에서 불충한 행동을 발견하였다는 핑계로 그 이유를 삼았다. 그는 그들이 이집트를 배척하는 유목민들을 조직적으로 단결시키기 위해 사막으로 들어가려는 의도에서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96:3.5 (1056.2) 그러나 모세는 낙심하지 않았다; 자기 때를 기다리다가, 1년이 되기 전에, 강력한 리비아 무리가 남쪽으로부터 들이닥치고 그리스의 해군이 북쪽으로부터 침입하는 동시적인 맹공에 대항하는 일에 이집트의 무리가 충분히 몰두하게 되었을 때, 이 대담한 조직가는 자기 동포들을 이끌고 극적인 밤 여행을 통해 이집트에서 빠져 나왔다. 해방을 위한 이 행진은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교묘하게 수행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와 작은 규모의 이집트 부대에 의해 맹렬한 추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부대는 모두 도망자들의 반항 앞에 무릎을 꿇었고, 많은 전리품을 안겨주었으며, 이것들은 도주하는 노예들이 그들의 조상이 살았던 사막의 고향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모든 것이 증강되어 갔다.

제 4 장. 야훼를 선포함

96:4.1 (1056.3) 모세의 교훈의 진화와 향상은 전 세계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왔으며, 20세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그러하다. 보다 더 진보된 이집트의 종교 철학을 모세가 이해한 반면, 베도윈 노예들은 그러한 교훈들을 거의 알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호렘산의 하느님, 그들의 조상들이 야훼라고 불렀던 그 하느님을 전반적으로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96:4.2 (1056.4) 모세는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가르침을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왕족 혈통의 여자와 포로가 된 인종의 남자가 특이하게 연합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공통적인 종교적 신념 때문이었다. 모세의 장인은 엘 엘리온을 경배하는 켄-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해방시킨 자의 부모들은 엘 샤다이를 믿고 있었다. 그래서 모세는 엘 샤다이를 믿는 사람으로 교육을 받았다; 그의 장인의 영향을 받아서 엘 엘리온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로부터 도망한 후 시나이 산에 머무를 무렵에는 신(神)에 대한 새롭고도 더욱 커지게 된 개념(전에 가졌던 그의 모든 신념들로부터 유래된)을 이미 형성시킨 상태였는데, 현명하게도 그는 그것을 자기 민족의 전통적인 부족 신인 야훼에 대한 하나의 확대된 개념으로 그들에게 선포하기로 결정하였다.

96:4.3 (1056.5) 모세는 이 베도원 사람들에게 엘 엘리온의 관념을 가르치려고 노력하였지만, 이집트를 떠나기에 앞서서,

그는 그들이 이 교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의 하나의 유일한 하느님으로서 그들의 사막의 부족 하느님을 타협안으로 채택하기로 신중하게 결정하였다. 모세는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나라들이 다른 하느님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는 야훼가 모든 존재들보다 위에 그 너머에 있다고 단호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베도원 부족들의 금송아지에 의해 항상 상징화되어 왔던, 야훼라는 옛 이름을 가장하여, 무지한 이노예들에게 신(神)에 대한 보다 높고 새로운 관념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거북스러운 상태 때문에 그는 항상 괴로워하였다.

96:4.4 (1056.6) 야훼가 도망치는 히브리인들의 하느님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거룩한 시나이 산 앞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와, 호렙산의 하느님인 야훼의 이름으로 모세가 공표 하였던 십계명이 왜 그곳에서 그들이 받아들였는지를 설명해 준다. 시나이 산 앞에서 오래 머무는 동안, 새로이 발전되는 히브리 경배의 종교적 예식들이 더욱 완전하게 되었다.

96:4.5 (1057.1) 그들이 산 밑에서 엄숙하게 머무른 세 번째 주간 동안에 호렙산의 맹렬한 화산 분출이 없었더라면, 어느 정도 진보된 예식 경배의 제정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25년 동안 변하지 않게 지키는 일에 있어서 모세가 성공을 거두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야훼의 산이 불 속에 타오르고, 연기가 마치 화로(火爐)의 연기처럼 올라갔으며,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 이러한 지각변동을 고려한다면, 모세가 그들의 하느님이 “막강하시고, 무시무시하며, 맹렬한 불이시고, 무서우며, 만능이신” 것으로 자기 동족들에게 가르쳤을 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으리라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96:4.6 (1057.2) 모세는 야훼가 직접 히브리인들을 선민(選民)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이라고 선포하였다; 하나의 새로운 나라를 세웠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야훼가 엄격한 과업감독자, “질투하시는 하느님”이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의 종교적인 가르침을 현명하게 국가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에게 야훼가 “모든 육신의 영들의 하느님”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칠 때, 그리고 “영원하신

하느님은 너희의 피난처이시며 너희는 영속하는 팔 아래에 있다.”고 말할 때, 신성에 대한 그들의 개념을 확장하려고 애썼다. 모세는 야훼가 계약을 지키시는 하느님이라고 가르쳤으며; “주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너희를 멸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너희 조상들과 맺은 계약을 잊지 않으실 것이며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가르쳤다.

96:4.7 (1057.3) 모세는 “진리이시며 사악한 불의가 없으신, 그의 모든 행사가 공의롭고 옳으신 하느님”으로 그를 표현하였을 때 야훼를 최극 신(神)의 존엄성으로 격상시키려는 영웅적인 노력을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양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제한된 납득 때문에 하느님을 사람의 형상, 화내고 복수하며 혹독하다고 여겨지는 존재로, 그리고 심지어는 복수심이 불타고 사람의 행위에 의해 쉽게 좌우되는 존재인 것처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96:4.8 (1057.4) 모세의 가르침에 따라서, 부족의 자연계 하느님, 야훼는 이스라엘의 주님 하느님, 그들을 따라 광야로

나오고 방랑할 때까지도 따라오고, 그곳에서 드디어 모든 민족들의 하느님으로 알려진 존재가 되었다. 유대인들을 바빌로니아에서 종으로 만든 후일의 포로 생활은, 야훼에 대한 진화하는 개념을, 모든 나라들의 하느님이신 일신교적 역할을 맡는다고 추정하도록 최종적으로 해방하였다.

96:4.9 (1057.5) 히브리인들의 종교적인 역사에 있어서 가장 독특하고 놀라운 특징은, 호렙산의 원시적인 하느님 개념으로부터, 그들의 뒤를 이은 영적 영도자들의 가르침을 거쳐,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창조자 하느님에 대한 장엄한 개념을 선포하였던 이사야의 신(神) 교리 속에 묘사된 높은 차원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신(神) 개념의 이와 같은 계속적인 진화와 관계된다.

제 5 장. 모세의 가르침

96:5.1 (1057.6) 모세는 군사 영도자, 사회 조직가, 그리고 종교 스승이 비범하게 병합된 사람이었다. 그는 마키벤타와 예수 사이의 기간 동안에 개별존재로서 가장 중요한 세계의 스승이자 영도자였다. 모세는 이스라엘에 지금은 아무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많은 개혁 정책들을

도입하려고 시도하였다. 한 사람의 삶의 기간 동안, 그는 이른바 히브리인이라 불리는 여러 언어의 유목 집단을 노예 상태와 문명화되지 못한 방랑생활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였고 한편으로는 뒤이어 일어난 한 나라의 탄생과 한 종족의 영속에 대한 기초를 놓았다.

96:5.2 (1057.7) 출애굽 당시에는 히브리인들이 문자 언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기록이 매우 희귀하다. 그 시대와 모세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그 위대한 영도자가 죽은 후 1,000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잔존하는 전승들로부터 유래되었다.

96:5.3 (1058.1) 모세가 이집트인들과 주변의 레반트 지역 부족들보다 뛰어나게 만들었던 대부분의 진보들은 멜기세덱 시대의 켄-사람 전승들로부터 기인된 것이었다. 마키벤타가 아브라함과 그의 동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면, 히브리인들은 아무 희망도 없는 암흑 속에서 이집트를 빠져나왔을 것이다.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는 멜기세덱 시대의 전승들 중에서 남은 것들을 수집하였고, 이 교훈들은 이집트인들의 학문과 결합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와 예식을 개선하는

창안에 있어서 모세를 안내해 주었다. 모세는 조직가였으며;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종교 그리고 사회관례들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것들을 선택하였고, 이 실천 관행들을 멜기세덱 교훈의 전승들과 결합시켜서, 히브리의 경배 예식 체계를 조직하였다.

96:5.4 (1058.2) 모세는 섭리를 믿는 자였으며; 나일과 다른 자연적 요소들에 대한 초자연적 통제와 관련하여 이집트의 교리들에 의해 이미 속속들이 물들어 있었다. 그는 하느님에 대해 위대한 통찰력을 가졌지만,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이 만일 하느님께 복종하면 “그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며 너희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너희 태(胎)의 열매와 너희 땅의 소산—곡식, 포도주, 기름, 가축 떼—을 배가시키실 것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보다 더욱 번영할 것이며, 너희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너희로부터 물리치시고 이집트의 악한 질병들이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가르쳤을 때 그는 너무나도 진지하였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였다: “너희 하느님이신 주님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에게 부유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러 나라들에게

빌려주겠으나, 너희는 빌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겠지만 너희는 다스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96:5.5 (1058.3) 그러나 위대한 마음을 소유한 이 모세가 무지하고 무식한 히브리인들이 이해하도록, 엘 엘리온, 지고자에 대한 자신의 고귀한 개념을 적응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로 가엾은 일이었다. 모여 있는 자신의 영도자들에게 그는 “너희 하느님이신 주님은 유일하신 하느님이시며; 그 외에는 다른 하느님이 없다”라고 외친 반면, 혼합된 군중들을 향해서는 “모든 하느님들 중에서 너희 하느님 같으신 이가 누구이냐?”라고 선언하였다. 모세는 주물과 우상 숭배에 대항하는 일에 용감하였고 부분적으로는 성공하는 위치를 굳혔는데, 그는 “하느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나와 호렙산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날에 견줄만한 것을 너희가 본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그는 어떤 종류의 형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96:5.6 (1058.4) 모세는 야훼의 자비를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은 하느님 중 하느님이시며, 주님중의 주님이시며, 사람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위대하신 하느님, 막강하고 무서운 하느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두려움과 공의의 하느님으로 자기 민족을 겁먹게 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너희가 너희 하느님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가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 너희가 그에게 복종하면 고쳐주고 생명을 주실 것이다”라고 선언하면서, 거친 씨족들을 통제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이 부족들에게 그들이 오직 “그의 모든 법규들에 복종하고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조건에서만 하느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96:5.7 (1058.5) 이러한 초기시대 동안 하느님의 자비는 히브리인들에게 거의 가르쳐지지 않았다. 그들은 하느님을 “전능자; 주님은 전쟁의 사람, 자기 적들을 궤멸시키는, 힘으로 영광스러운 전쟁터의 하느님”으로 배웠다. “너희 하느님이신 주님은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진영 한 가운데에서 행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하느님을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는 또한 “무정한 바로의 가슴”을 갖고 “그들의 적을 저주하는” 존재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96:5.8 (1058.6)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우주적이고 인정 많은 신(神)을 거의 보여주지 못한 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야훼에 대한 일상적인 개념은 하느님에 대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부족 하느님들보다 나을 것이 거의 없었다. 하느님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원시적이고 미숙하고, 사람모습의-신(神)이었으며; 모세가 죽은 후에는 이 베도원 부족들은 자신들이 그 전에 섬겼던 호렙산과 사막의 하느님들에 대한 반(半)야만적인 관념들로 신속하게 되돌아갔다. 모세가 자기 영도자들에게 수시로 제시하였던 하느님에 대한 더욱 확대되고 탁월하였던 통찰력은 곧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훼에 대한 팔레스타인 목동들의 상징물인 금송아지로 만든 그들의 주물을 경배하는 쪽으로 되돌아갔다.

96:5.9

(1059.1)

모세가 히브리인들에 대한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을 때, 그는 이미 아브라함과 나홀과 롯 그리고 관련된 부족들의 다른 수천 명의 방계 후손들을 모아놓은 상태에 있었으며 그들을 고쳐서 자아-지탱이 되게 하였고 목축을 하는 전사들로 구성된 부분적으로 자아-규율하는 민족이 되게 하였다.

제 6 장. 모세가 죽은 이후의 하느님 개념

96:6.1 (1059.2) 모세가 숨을 거두게 되자 야훼에 대한 그의 고상한 개념은 급속도로 저하되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전지하고 인정이 많으며 전능하신 하느님에 관한 모세의 전통들을 계속하여 품고 있었지만, 일반 대중들은 야훼에 대한 옛날의 사막에서의 관념으로 신속하게 되돌아갔다. 그리고 신(神)에 대한 이러한 퇴보 경향은 소위 판관들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부족 족장들의 연속되는 통치 밑에서 계속하여 점점 더 증가하였다.

96:6.2 (1059.3) 모세의 비범한 개인성에 대한 매력은 그의 추종자들의 가슴속에 하느님에 대한 점점 더 확대되는 개념의 통찰력을 생생하게 유지시켰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일단 팔레스타인의 비옥한 땅에 도착하게 되자, 그들은 유목민 목축업자로부터 재빨리 진화하여 기틀이 잡히고 어느 정도 안정된 농민들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생 실천 관행의 진화와 종교적인 관점의 변화는 그들의 하느님인 야훼의 본성에 대한 그들의 개념의 성격에 다소 완성된 변화를 요구하였다. 시나이 산의 엄격하고 미숙하고 가혹하고 우리 같이 소리치는 광야 하느님이 변형되어, 후대에 나타난 사랑과 공의 그리고 자비의

하느님의 개념으로 바뀌는 동안, 히브리인들은 모세의 고귀한 교훈들을 거의 잊게 되었다. 그들은 유일신교의 개념을 거의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유란시아의 영적인 진화에 있어서 지극히 중대한 연결 고리 역할을 감당하게 될 민족, 만유의 아버지의 증여된 아들의 육신화 시기까지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멜기세덱 교훈을 보존할게 될 집단이 될 기회를 거의 잃어버리게 되었다.

96:6.3 (1059.4) 여호수아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 부족들의 마음속에 최극 야훼의 개념을 유지시키려고 애썼으며, 그 결과로 이렇게 선포하였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믿지 아니하는 자기 민족에게 단호한 복음을 전할 필요를 발견하였는데,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가졌던 옛날의 기원적 종교를 너무나도 기꺼이 믿으려고 하였지만, 신앙과 정의를 찾는 종교에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였다. 여호수아의 가르침이 주는 부담은 이러하였다: “야훼는 거룩하신 하느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느님이시고; 너희의 범죄와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시대의

가장 높은 개념은 야훼를 “능력과 심판과 공의의 하느님”으로 묘사하였다.

96:6.4 (1059.5) 그러나 이러한 암흑시대에 있어서도, 때때로 여러 독립적인 선생들이 일어나 신성에 대한 모세의 개념을 전파하곤 하였다. “그는 거룩하신 하느님이시니, 사악한 너희 자녀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필사 사람이 하느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느냐? 사람이 자기 조물주보다 더 순수할 수 있느냐?” “너희가 노력하여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느냐? 완전케 이르는 전능자를 너희가 찾을 수 있느냐? 보라, 하느님은 위대하시니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한다. 전능자에 대하여는, 우리가 그를 발견할 수 없다.”

제 7 장. 시편과 욥기

96:7.1 (1060.1)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의 족장들과 사제들의 지도하에 팔레스타인에서 영성하게 조직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사막에서의 미개한 신앙으로 되돌아갔으며 보다 덜 발달된 가나안-사람의 종교적 실천 관행들에 의해 오염되게 되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방종한 상태에 빠졌으며, 신(神)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아직 살아있는 특정한 살렘 집단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던 신에 대한 이집트인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인 들의 개념들보다 훨씬 뒤떨어진 것이었는데, 그 개념들은 소위 욕기라 불리는 책과 시편의 일부분에 기록되어 있다.

96:7.2 (1060.2) 시편은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의 작품인데,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선생들에 의해 씌어졌다. 레반트 지역 사람들이 자연계 하느님들을 경배하던 이 시대 동안에도, 지고자, 엘 엘리온의 최극위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96:7.3 (1060.3) 수집된 어떤 종교적 문서들도 시편 기록만큼 그토록 하느님에 대한 풍부한 영감어린 관념들과 신앙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놀랄만하게 수집된 이러한 경건한 문헌들을 정독함에 있어서, 어떤 다른 단일 수집품도 그러한 엄청난 기간 동안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각각의 분리된 찬양과 경배의 시에 대한 출처와 연대를 고려할 수만 있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시편은 아메니뮵 때부터 이사야에 이르는 전체 기간 동안, 그리고 레반트 지역 전체에서 살렘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해 환영을 받았던, 하느님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을 기록한 것이다. 시편에서 보면 하느님이, 부족 신(神)의 투박한 관념으로부터 후대의 히브리인들의 크게 확대된 이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개념 속에 묘사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야훼는 사랑이 많은 통치자이면서 자비로운 아버지로 묘사되어 있다.

96:7.4 (1060.4) 그리고 그렇게 간주되었을 때, 시편의 이 작품들은 20세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에 의해서 조합되었던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도움을 주는 신앙적 정서의 유형을 이룩하게 된다. 이렇게 수집된 찬송 시들의 경건한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적 서적들보다 뛰어나다.

96:7.5 (1060.5) 읊기에 묘사되어 있는 신(神)에 대한 다채로운 묘사는 거의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명이 넘는 메소포타미아 종교 교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신앙들에 대한 이러한 수집품들 속에서 발견되는 신성에 대한 고상한 개념을 너희가 읽게 되면, 팔레스타인이 암흑기를 맞이하는 동안 실제적인 하느님에 대한 관념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이 바로 갈대아에 있는 우르의 주변지역이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96:7.6 (1060.6)

팔레스타인에서는 하느님의 모든-충만함과 지혜가 파악되는 경우는 때로 있었지만 그의 사랑과 자비가 파악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 시대의 야훼는 “자기 적들의 혼을 지배하기 위하여 악한 영들을 보내는” 존재였으며; 자기에게 소속되고 복종하는 자녀들을 번영케 하는 반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주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는 존재였다. “그는 교활한 계락을 미워하고, 그들 자신의 책략에서 방법을 모색한다.”

96:7.7 (1060.7)

오직 우르에서만 하느님의 자비를 외치려고 한 음성이 일어나 말했다, “하느님께 기도하는 자는 그의 은혜를 얻게 되고 기쁨으로 그를 만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하느님은 인간에게 신성한 정의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르로부터 신앙에 의해 신성한 은혜를 받는다는 구원이 이렇게 전파되었다: “그는 뉘우치는 자들에게 인자하시며, ‘내가 몸값을 받았으니, 그가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구원하라’고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가 죄를 지었고 옳은 것을 행치 않았으며,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고 말하면, 하느님이 그의 혼을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하실 것이며, 그는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우르의 선지자이고 살렘 신자들의

사제, 메소포타미아에 한 때 있었던 멜기세덱 거류민단 중에서 남은 자였던 엘리후의 이 특이한 교훈만큼 인간의 생존에 대한 그러한 우렁차고 기운차게 하는 메시지를, 멜기세덱 이후로는 들은 적이 없었다.

96:7.8 (1061.1) 그리하여 살렘 선교사들 중에서 메소포타미아에 남은 자들은, 히브리 민족이 아직 조직화되기 이전 동안, 개념 위에 개념을 세우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스라엘 선생들의 긴 행렬에서의 첫 번째까 출현하기까지, 야훼 개념이 진화에서 절정에 달한 만유의 창조자 그리고 우주 아버지에 대한 이상에서의 그들의 실현이 성취되기까지, 진리의 빛을 꺼트리지 않았다

96:7.9 (1061.2)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97 편 히브리인 사이에서의 하느님의 개념의 진화

97:0.1 (1062.1) 히브리인들의 영적 영도자들은 그들 이전에 다른 어떤 사람들도 행동에서 성공한 적이 없었던 일—철학자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 신(神)의 추상관념으로 전환됨이 없이, 자신들의 하느님 개념에서 사람모습-신(神)개념을 벗어나는 일—을 했다. 평민들까지도 야훼에

대한 성숙된 개념을 개별존재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종족의 아버지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

97:0.2 (1062.2) 하느님의 개인성에 대한 개념은, 멜기세덱의 시대에 살렘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졌던 반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던 시대에는 모호하고 불분명하였으며 세대가 지나가면서 영적인 영도자들의 가르침에 반응하여 히브리인의 마음속에서 점차적으로 진화되어갔다. 야훼의 개인성에 대한 인식은 많은 다른 신(神) 속성들보다 훨씬 더 지속적으로 발전적인 진화를 하였다. 모세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인 마음속에서 하느님의 개인성에 대한 관념화가 거의 끊임없이 발생했으며, 이 개념은 결국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에 의해서 강화되고 영화롭게 되었다.

제 1 장. 사무엘—첫 번째 히브리 선지자

97:1.1 (1062.3) 팔레스타인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적대적인 압력으로 인하여 히브리 족장들은 자신들의 부족 조직들이 동맹하여 중앙집권적인 정부를 만들지 않으면 살아남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행정-

관리적 권한의 이러한 집중화는 사무엘이 선생과 개혁가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97:1.2 (1062.4) 사무엘은 멜기세덱의 진리들을 자기들의 경배 형태들의 일부분으로 계속 유지시켜왔던 살렘 선생들의 오래된 혈통으로부터 태어났다. 이 선생은 씩씩하고 단호한 사람이었다. 그의 비범한 결단력과 함께 오직 그의 숭고한 헌신만이 그로 하여금 거의 전반적인 저항을 견디어내게 하였는데, 그 저항은 그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켜서 모세 시대의 최극 야훼를 경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였을 때 부딪히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때에도 그는 단지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뿐이다; 야훼에 대한 보다 높은 개념의 예배봉사에 히브리인들 중에서 좀 더 지능적인 절반만을 되돌려 놓을 수 있었다; 그 나머지 절반은 보다 열등한 야훼 개념과 그 고장의 부족 하느님들을 경배하는 데에 머물러 있었다.

97:1.3 (1062.5) 사무엘은 거친 형식의 남자, 어느 날 자기 연관-동료들과 함께 가서 여러 개의 바알 신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실천적인 개혁가였다. 그가 이룩한 진보는 충동적인 순수한 단체에 의해서였고; 그는 설교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가르치는 경우도 많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어느 날 그는 바알의 사제를 조롱하였고; 그 다음 날에는 포로가 된 한 왕을 살해하였다. 그는 유일하신 하느님을 헌신적으로 믿었으며, 그 유일하신 하느님이 하늘과 땅의 창조자라는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 “주님께서 지구의 기둥들을 세우셨고, 세상을 그 위에 두셨다.”

97:1.4 (1063.1) 그러나 신(神) 개념의 발전에 있어서 사무엘이 기여한 위대한 공헌은 야훼가 변함이 없다는, 언제까지나 틀림없는 완전성과 신성에서의 동일한 체현이라는 우렁찬 선언이었다. 이 시대에는 야훼가 질투심이 있는 변덕스러운,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던 것을 항상 후회하는 하느님으로 생각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빠져 나온 이후 처음으로 이러한 놀라운 말을 듣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능력자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시는데, 왜냐하면 그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신성(神性)과의 거래에 있어서 안정감이 선포되었다. 사무엘은 아브라함과 맺은 멜기세덱의 계약을 되풀이하여 말하였고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이 모든 진리와 안정성과 불변성의 근원이라고

선언하였다.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하느님을 항상 하나의 사람, 알지 못하는 기원을 갖는 고귀한 영인 하나의 초인간이라고 간주해 왔었지만; 이제 그들은 한 때 호렙의 영이던 그가 완전한 창조자인 변하지 아니하는 하느님으로 고양되었음을 듣게 되었다. 사무엘은 사람 마음의 변화하는 상태와 필사 실존의 변천을 넘어, 진화하는 하느님 개념이 높은 곳으로 상승하도록 돕고 있었다. 그의 가르침 아래에서,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개념은 옛날의 부족 하느님들로부터 만능이신 변화가 없으신 창조자 그리고 모든 창조체의 감독자라는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97:1.5 (1063.2) 그리고 그는 하느님의 진실성에 대한 이야기, 약속 이행에 대한 확실성을 새로이 전파하였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우리와 영속하는 계약을 맺으셨으며, 모든 것에게 명하시고 지키신다.” 그리하여 팔레스타인 전역에서는, 최극 야훼를 경배하라는 부름이 울려 퍼졌다. 활기에 찬 이 선생은 항상 “오 주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위대하시니, 당신과 같으신 이가 없으며, 당신만이 유일하신 하느님 이십니다.”라고 선포하였다.

97:1.6 (1063.3)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은 주로 물질적인 번영의 의미에서 야훼의 은혜를 생각하였다. 사무엘이 “주님께서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가 가난한 자들을 먼지 속에서 이끌어 올리시고 구걸하는 자들을 높이 들어서 영주들과 함께 하게 하셔서 그들로 영광의 왕권을 상속받게 하신다.”고 감히 선언하였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사무엘 자신의 목숨을 거의 바쳐야 할 정도였다. 모세 이후로는, 초라하고 행운이 덜 따라온 사람들에게 그러한 위로의 약속이 선포된 적이 없었으며, 가난한 자들 중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지위를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시작하였다.

97:1.7 (1063.4) 그러나 사무엘은 부족 하느님 개념에서 그렇게 많이 진보하지는 못하였다. 그는 야훼가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였다고 선포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주로 히브리인들, 그의 선택을 받은 민족에게 주로 국한된 것이었다. 그러하더라도, 모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느님 개념이 다시 한 번 거룩하고 공정한 신(神)을 나타내었다. “주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다. 누가 이 거룩하신 주 하느님과 비교될 수 있겠는가?”

97:1.8 (1063.5) 여러 해가 지나가면서, 머리가 희어진 늙은 그 영도자는 하느님에 대한 납득에 있어서 진보를 이룩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은 지식의 하느님이시며, 행위들은 그에 의해서 측정된다. 주님은 이 세상의 종말을 심판하시고, 자비로운 자들에게는 자비를 보이시며, 정직한 자들에게는 그도 역시 정직하게 대하실 것이다.” 여기서 비록 자비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비로운 자들에게만 국한된다. 나중에는 그가 한 걸음 발전을 이룩하였는데, 그들이 역경에 처하였을 때 그는 자기 민족에게 이렇게 훈계하였다: “주님의 자비가 크시니 이제 우리 모두 그의 손에 의뢰하자.” “많이 구원하시든지 적게 구원하시든지 주님을 속박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

97:1.9 (1063.6) 그리고 야훼의 성격에 대한 개념에서의 이러한 단계적 발전은 사무엘의 후계자들의 사명활동 밑에서 계속되었다. 그들은 야훼를 계약을-지키는 하느님으로 제시하고자 시도하였지만, 사무엘이 내디딘 걸음을 도저히 유지하지 못하였다; 사무엘이 말년에 이해하게 되었던 하느님의 자비의 관념을 발전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야훼가 모든 하느님들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이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하느님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지속적인 표류가 있었다. “오 주님, 왕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 위에서 우두머리로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97:1.10 (1064.1) 이 시대의 기초는 신성한 힘이었다; 이 시기의 선지자들은 히브리 왕좌 위에 앉는 왕을 육성하도록 고안된 종교를 전파하였다. “오 주님, 위대함과 힘과 영광과 승리와 장엄함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손 안에 힘과 권세가 있으며, 당신은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강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과 그의 직계 후계자들이 살던 시절 동안의 하느님 개념이었다.

제 2 장. 엘리야와 엘리사

97:2.1 (1064.2) 그리스도 이전 10세기경에 히브리 국가는 두 왕국으로 나뉘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뉜 두 나라 모두,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분단 전쟁 이후에도 비참하게 계속되었던 그리고 이미 깊어진 영적 퇴폐에서의 반작용하는 물결을 저지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히브리 종교를 발전시키려는 이 노력들은, 정의를 향하여 단호하고 대담한 전사였던 엘리야가 그의 가르침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변영하지 못하였다. 엘리야는 사무엘 시대에 필적할만한 하느님 개념을 북(北) 왕국에 부활시켰다. 엘리야는 하느님에 대하여 진보된 개념을 제시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였다; 사무엘이 그에 앞서서 하였던 것처럼, 그도 역시 잘못된 하느님들에 대한 우상들을 파괴하고 바알의 제단들을 뒤집어엎기 바빴다. 그리고 그는 우상을 섬기는 왕의 반대에 직면하여 자신의 개혁을 계속 밀고 나갔으며; 그의 과업은 사무엘이 당면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어려웠다.

97:2.2 (1064.3) 엘리야가 불러간 후에는, 그의 신실한 연관-동료였던 엘리사가 그의 일을 떠맡았으며, 잘 알려지지 않은 미가야의 매우 귀중한 도움을 얻어, 팔레스타인에 진리의 빛을 계속 비추었다.

97:2.3 (1064.4) 그러나 이 시대에는 신(神)에 대한 개념이 진보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히브리인들은 아직 모세의 개념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는 최극 야훼의 경배로 돌아가는 보다 나은 상태에서 막을 내렸으며, 사무엘이 남겨둔 그 자리에 우주적 창조자에 대한 관념이 회복되는 것을 목격함으로 끝을 맺었다.

제 3 장. 야훼와 바알

97:3.1 (1064.5) 야훼를 믿는 사람들과 바알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논쟁은 종교적인 신념에 있어서의 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관념상의 사회경제적 충돌이었다.

97:3.2 (1064.6)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은 땅의 소유권에 대해 다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남부 또는 방랑하는 아라비아 부족들(야훼를 숭배하는 자들)은 땅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그 씨족에게 준 신(神)의 선물로—간주하였다. 그들은 그 땅이 팔리거나 저당 잡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야훼께서는 ‘그 땅이 내 것이니 팔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7:3.3 (1064.7) 북쪽에 있는 보다 더 정착된 가나안-사람들은(바알을 숭배하는 자들) 자기들의 땅을 자유롭게 사고팔았으며 저당을 잡히곤 하였다.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인을 의미한다. 바알 예배종파는 두 개의 주요 교리 위에 기초를 두고 있었는데: 첫째는, 재산의 교환과 서약 그리고 계약—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의 확증이었다. 두 번째는, 바알—땅을 비옥하게 하는 하느님—이 비를 내리게 한다는 생각이었다. 양질의 곡식이 맺히는 것은

바알의 은혜라고 믿었다. 그 예배종파는 주로 땅에, 그것의 소유권과 비옥함에 관심을 두었다.

97:3.4 (1065.1)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대개 집과 땅과 노예를 소유하였다. 그들은 땅을 소유하는 귀족들이었고 도시들에서 살았다. 바알이 있는 곳에는 각각 하나의 신성시되는 장소와 사제 그리고 “성스러운 여인들”, 예식적인 매춘부들이 있었다.

97:3.5 (1065.2) 땅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견해 차이 외에도, 가나안-사람들과 히브리인들은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 종교적 태도에 있어서 심각한 반목이 진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논쟁은 엘리야의 시대 이전에는 하나의 명확한 종교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의욕적인 이 선지자의 시대 때부터, 그 문제는 더욱 명확해진 종교적 계통들 사이—야훼와 바알—의 투쟁거리가 되었으며 야훼의 승리로 끝났고 그 뒤를 이은 사람들은 유일신교를 추구하였다.

97:3.6 (1065.3) 엘리야는 야훼-바알 논쟁을 땅에 대한 문제로부터 히브리인과 가나안-사람들의 관념에 대한 종교적인 측면으로 전환시켰다. 아합 왕이 나봇 가문의 땅을 차지할

음모를 꾸며서 그들을 죽였을 때, 엘리야는 땅과 관계되는 옛날의 사회관례들로부터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하였고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대항하는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이것은 도시인들에 의한 지배에 항거하는 시골 사람들의 투쟁이기도 하였다. 야훼가 엘로힘이 된 것은 주로 엘리야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선지자는 토지 개혁자로 출발하여 신(神)을 고양시키는 일로 끝을 맺었다. 바알들은 숫자가 많았지만 야훼는 하나였다—유일신교가 다신교를 이겼다.

제 4 장. 아모스와 호세아

97:4.1 (1065.4) 부족 하느님 개념—그토록 오랫동안 희생 제물들과 예식이 바쳐졌던 하느님, 초기 히브리인들의 야훼—으로부터 자기 자손들의 죄와 부도덕성까지도 기꺼이 응징하시는 하느님 개념으로 전환하는 큰 변화가 아모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는 남부의 산악지대에서 출현하여 북부에 있는 부족들의 범죄와 술 취함 그리고 억압과 부도덕성을 비난하였다. 모세의 시대 이후로 팔레스타인에서 그렇게 울려 퍼지는 진리가 선포된 적이 없었다.

97:4.2 (1065.5) 아모스는 단순한 원상복귀 또는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었다; 신(神)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을 발견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선조들에 의해 알려졌던 하느님에 관해 많은 것을 전파하였고, 소위 선택된 민족 가운데에 있는 죄를 묵인하고자하는 그 신성한 존재에 대한 믿음을 용감하게 공격하였다. 멜기세덱 시대 이후 처음으로, 사람들은 국가적인 공의와 도덕성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이 선언되는 것을 들었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들 자신의 하느님인 야훼에 대하여 들었는데, 그 야훼는 그들의 삶 속에서 범죄와 죄를 허용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다른 민족의 경우에도 그러하였다. 아모스는 사무엘과 엘리야의 엄격하고 공의로운 하느님을 그렸지만, 그는 또한 잘못에 대하여 응징을 내릴 때 어떤 다른 나라와 전혀 다름이 없이 히브리인들을 취급하는 하느님이신 것을 알았다. 이것은 "선민(選民)"에 대한 이기주의적 교리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었으며, 그 당시 많은 히브리인들이 그것을 통렬히 비난하였다.

97:4.3 (1065.6) 아모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을 만드신 이가, 일곱 별들과 오리온 성좌를 지으신,

죽음의 그림자를 바꾸어 아침이 되게 하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만드시는 그를 찾는다.” 반(半) 종교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부도덕한 자신의 추종자들을 비난하면서, 그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변하지 아니하는 야훼의 굽히지 아니하는 공의를 묘사하기 위해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이 음부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내가 그곳에서 그들을 취할 것이다; 그들이 비록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내가 그곳에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적군 앞에서 포로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곳에서 공의의 칼을 휘두를 것이며, 그것이 그들을 무찌를 것이다.” 아모스가 자기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책망하는 손짓을 하면서 야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였을 때 그들은 더욱 놀랐다: “너희가 행한 것들을 내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체질을 하여 곡식을 골라내는 것처럼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집을 골라낼 것이다.”

97:4.4 (1066.1) 아모스는 야훼를 “모든 나라들의 하느님”으로 선포하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식(禮式)이 정의를 결코 대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이 용감한 선생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최극 야훼에 대한

교리를 보존시키기에 충분한 진리의 누룩을 퍼뜨려 놓았다; 멜기세덱 계시가 더욱 발전하도록 보장해 놓았다.

97:4.5 (1066.2) 호세아가 아모스의 뒤를 이었고 사랑 넘치는 하느님에 대한 모세의 개념을 부활시킴으로써 우주적인 공의의 하느님에 대한 그의 교리를 이어받았다. 호세아는 희생 제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음을 전파하였다. 그는 자애로움과 신성한 자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와 언제까지나 약혼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렇다, 나는 정의와 심판을 통하여 그리고 자애로움과 자비를 통하여 너희와 약혼을 맺을 것이다. 또한 나는 신실함으로 너희와 약혼을 맺을 것이다.” “나는 나의 진노가 사라졌으므로, 그들을 아무 값없이 사랑할 것이다.

97:4.6 (1066.3) 호세아는 아모스의 도덕적인 경고를 신실하게 계속 전하면서 하느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그들을 벌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나 그가 “나의 민족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의 민족’이라 말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반역에 해당하는 잔혹한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회개와 용서를 전파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그들의 타락을 고쳐줄 것이다; 나의 진노가 사라졌으므로 그들을 값없이 사랑할 것이다.” 호세아는 항상 희망과 용서를 선포하였다. 그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것은 항상 이러하였다: “나는 내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그들은 나만을 하느님으로 알게 될 것이다.”

97:4.7 (1066.4) 아모스는 히브리인들의 국가적인 의식을 자극하여,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지은 범죄와 죄를 야훼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그들이 깨닫도록 한 반면, 호세아는 이사야와 그의 연관-동료들에 의해 매우 절묘하게 찬미되었던 신성한 연민과 자애에 대한 후대의 자비로운 화음에 있어서 서두를 장식하였다.

제 5 장. 첫 번째 이사야

97:5.1 (1066.5) 이 시대에는 북부 지방의 씨족들 사이에 있는 개인적인 죄와 국가적인 범죄에 대하여 형벌이 있을 것이라는 위협적으로 선포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은 남 왕국의 범죄에 대하여 징벌로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첫 번째 이사야가 출현한 것은 히브리 국가들 속에서 양심과 의식이 자극되기 시작할 때였다.

97:5.2 (1066.6) 이사야는 하느님의 영원한 본성, 그의 변치 아니하는 완전한 확실성을 전파하기를 계속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또한 내가 그 저울의 줄을 판단하고 추를 정의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매여 지내도록 만들어진 슬픔과 두려움과 굶은 속박으로부터 너희를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귀는 너희 뒤에서 울리는 ‘이것이 그 길이다, 여기로 걸어라’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보라, 하느님은 나의 생존이시며;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찬송이시니 내가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와서 우리가 함께 따져보자,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질 것이다; 그것들이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라고 하셨다”

97:5.3 (1066.7) 두려움에 떨고 굶주린 혼을 가진 히브리인들에게 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의 빛이 임하였고 주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솟아올랐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여라.”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파하도록 그가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므로 주님의 영이 나에게 계시며; 그는 비탄에 잠긴 자들을 싸매 주기 위하여, 포로 된 자들에게는 해방을, 묶인 자들에게는 옥문이 열렸음을 선포하도록 나를 보내셨다.” “주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그의 정의의 외투로 나를 가리셨으므로, 나는 주를 크게 기쁨으로 향유하며 나의 혼은 내 하느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들의 모든 고통 속에서 그가 고통을 당하셨고, 그의 현존 앞에 있는 천사가 그들을 구하였다. 그가 자기 사랑과 연민으로 그들을 구하셨다.”

97:5.4 (1067.1) 이 이사야 뒤에는 미가와 오바द्या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의 혼을-만족시키는 복음을 확립시키고 미화시켰다. 그리고 이 두 용감한 메신저들은 성직자의 지배하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예식을 담대하게 비난하였으며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체계 전체를 겁 없이 공격하였다.

97:5.5 (1067.2) 미가는 “보상을 받기 위하여 재판하는 통치자들과 급료를 받기 위해 가르치는 사제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비난하였다. 그는 미신과 성직자

제도로부터 해방될 날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의 포도나무 아래에 앉고,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이니, 이는 모든 민족이
하느님에 대한 각자의 깨달음에 따라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97:5.6 (1067.3) 미가의 메시지가 항상 담고 있는 내용은
이러하였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하느님 앞으로 올
것인가? 주님께서 천 마리의 숫양과 큰 강물과 같은 기름이
주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나의 범죄를 씻기 위하여, 내
혼의 죄 대신에 내 육체의 열매인 첫 태생을 바칠 것인가?
오 사람들아, 그는 무엇이 선한지를 내게 보이셨으니; 오직
주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로 행할 것과
자비로 사랑할 것 그리고 너희 하느님과 함께 겸손히
걸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는 하나의 위대한
시대였으며; 2,500년 전에 끊어졌던 그러한 해방시키는
메시지를 필사 사람들이 다시 듣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게까지 된, 정말로 감동적인 시대였다. 그리고 사제들의
완고한 저항이 없었다면, 이 선생들은 피를 흘리는
히브리인들의 경배 예식 전체를 폐지시켰을 것이다.

제 6 장. 대답한 예레미야

97:6.1 (1067.4) 여러 선생들이 이사야의 복음을 계속하여 가르치는 동안, 히브리인들의 하느님인 야훼를 국제화시키는, 그 다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일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다.

97:6.2 (1067.5) 예레미야는 다른 나라들과 군사적 대결을 벌이는데 있어서 야훼가 히브리인들의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야훼가 지구 전체의 하느님, 모든 나라들과 모든 민족들의 하느님이시라고 주장하였다. 예레미야의 가르침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국제화시키는 상승 파도를 점점 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리고 언제까지나 대담한 이 전도자는 야훼가 모든 나라들의 하느님이시며 이집트인들을 위한 오시리스나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위한 벨이나 아시리아 사람들을 위한 아슈르 또는 필리스틴 사람들을 위한 다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히브리인들의 종교는 이 시대 무렵과 그 이후에 유일신교의 부흥을 온 세상에 나누어주게 되었다; 마침내 야훼의 개념은 행성에서의 그리고 심지어는 조화우주 존엄성을 갖는 신(神)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연관-동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 국가로부터 독립된 야훼를 생각하기가 힘들었다.

97:6.3 (1067.6) 또한 예레미야는 이사야가 묘사하였던 공의와 사랑 넘치는 하느님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선언하였다: "그렇다, 나는 영속하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애로움으로 너희를 끌어내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 자손들을 고의적으로 괴롭히시지 않기 때문이다."

97:6.4 (1067.7) 두려움이 없는 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주님은 의로우시고 조언에서 위대하시며 그리고 실행에서 강력하시다. 그의 눈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결과에 따라 그리고 그의 방법에 따라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모든 자손들이 나아가는 모든 길을 살피신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포위된 동안 그가 "이제는 내가 이 땅을 나의 종이며 바빌로니아의 왕인 느브갓네살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하였을 때 불경스러운 반역죄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도시 사람들에게 행복하라고 조언하였을 때 사제들과 정부 관료들은 그를 비참한 지하 감옥인 진흙 구덩이에 던져버렸다.

제 7 장. 두 번째 이사야

97:7.1 (1068.1) 히브리 나라가 파괴되고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에 포로가 된 일은, 그들의 사제 무리들의 단호한 행동만 없었다면, 그들의 확대되는 신학에 큰 유익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그들의 나라는 바빌로니아 무리 앞에서 무너졌으며, 그들의 민족적인 야훼 개념은 영적인 영도자들의 국제적인 훈계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 모든 나라들의 국제화된 하느님에 대한 새롭고도 확대된 개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선택된 민족으로 재건시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히브리 역사상에 나타나는 기적적인 사건들을 여러 배로 늘이고 그토록 긴 전설들을 창조하도록 유대인 사제들을 유도한 것은 자기들의 민족적인 하느님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97:7.2 (1068.2) 포로가 되어 있는 동안 유대인들은 바빌로니아의 전통들과 전설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들이 빌려온 갈대아인 들의 이야기들의 도덕적인 격조와 영적인 의의(意義)를 충실하게 개선하였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함없이 이 전설들을 왜곡시켜서 이스라엘의 조상과 역사에 명예와 영광을 반영시키고자 하였다.

97:7.3 (1068.3) 이들 히브리 사제들과 서기관들은 그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관념밖에 없었으며, 그것은 유대 나라의 회복, 히브리 전통들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들의 인종적인 역사를 고상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만약에 이 사제들이 서방 세계의 그토록 넓은 지역에 그들의 잘못된 관념들을 심었다는 사실에 대해 분개한다면, 그들이 이 일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그들은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들은 성스런 책이 쓰일 수 있는 아무런 전문 계층도 없었다. 그들은 단순히 포로가 되어 있는 자기 동료들의 저하되는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하나의 교과서를 준비하였던 것뿐이다. 그들은 자기 동포들의 민족적 영광과 사기를 증대시키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삼았다. 그것이 후대까지 남아있게 되어 사람들은 이것들과 다른 문헌들을 조합하여 마치 오류가 없는 가르침인 듯한 지침서를 만들게 되었다.

97:7.4 (1068.4)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 사제들은 이 문헌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였지만, 첫 번째 이사야의 정의와 사랑과 공의 그리고 자비의 하느님에게로 충분히 전향한, 젊고 불굴의 의지를 가진 두 번째 이사야의 현존으로써 그들의

동료 포로들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이 크게 훼손을 받았다. 그는 또한 야훼가 모든 나라들의 하느님이 되셨다는 예레미야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 그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로로 잡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개종자들을 만드는 효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하느님의 본성에 대한 이 이론들을 전파하였다. 그리고 이 젊은 전도자는 자기 가르침들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첫 번째 이사야의 작품들 속에 그것들을 편입시키도록 유도한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에 대해 존중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적대적이고 앙심을 품은 사제들은 그를 제거시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두 번째 이사야의 작품들은 40장부터 55장에 삽입되면서 그 이름으로 되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97:7.5 (1068.5) 마키벤타 부터 예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선지자나 종교적 선생도 이 포로 시대에 두 번째 이사야가 선포하였던 높은 하느님 개념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 영적인 영도자가 선포한 것은 작은, 사람모습의-신(神), 사람이 만든 하느님이 결코 아니었다. "보라, 그가 섬들을 매우 작은 물건처럼 들어 올릴 것이다." "그리고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나의 방법은 너희 방법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깊다.”

97:7.6 (1069.1) 마키벤타 멜기세덱은 마침내 인간 선생이 실제
하느님을 필사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첫
번째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이 영도자는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는 분이심을 전파하였다. “내가 지구를
만들었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내가 쓸데없이 그것을
만들지 않았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조성하였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하느님이 없다.”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을 전하면서, 새로 나타난 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들이 사라지고 땅이 점점
쇠퇴할 수 있지만, 나의 정의는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나의 생존은 세대마다 계속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너희
하느님이니 너희는 놀라지 마라.” “나 외에는
하느님—공의의 하느님이며 구원자—이 없다.

97:7.7 (1069.2)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후로 계속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유대인 포로들을 위로해
주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를 되찾았고, 너희 이름으로 너희를 불렀으며;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너희가 물을 지나갈 때, 너희가 내 앞에 소중한 존재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여인이 자신의 젖먹이 아이를 잃음으로써 자기 자식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 그 여인은 잊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내 자녀들을 잊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이다; 내가 내 손의 그늘로 그들을 보호하였다." "사악한 자들로 하여금 자기 길을 떠나고 불의한 자들로 하여금 자기 생각을 버리게 하며, 그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러면 그가 그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며, 그를 우리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왜냐하면 그가 후하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97:7.8 (1069.3) **살렘의 하느님에 대한 이 새로운 계시의 복음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보자: "그가 목동처럼 자기 양떼들을 먹이실 것이다; 양들을 자기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아 옮기실 것이다. 약한 자들에게는 그가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힘을 주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새로운 힘을 받게 될 것이다; 독수리들처럼 날개를 가지고

산을 오를 것이다; 뛰어가더라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걸어가더라도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97:7.9 (1069.4) 이 이사야는 최극 야훼의 확대되는 개념의 복음을 멀리-미치도록 선전을 수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을 우주적 창조자로 묘사하는 웅변술에 있어서 모세와 경쟁이 될 만 하였다. 그는 우주 아버지의 무한한 속성을 묘사함에 있어서 시적(詩的)이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대하여 더 아름다운 소개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시편과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글들은 유란시아에 미가엘이 도착되기 전에 필사 사람의 귀에 들려졌던 하느님에 대한 가장 장엄하고 참되게 제시된 영적 개념들에 속하였다. 신(神)에 대한 이 묘사에 귀를 기울여보자: “나는 영원 속에 거주하는 높고도 고상한 존재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나 외에는 다른 하느님이 없다.” “또한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다.” 그리고 인자한 반면에 당당한 이 선지자가 신성한 불변성,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하여 훈계하였을 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교리였다. 그는 “하느님이

잊지 않으실 것이며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97:7.10 (1069.5) 이 용감한 선생은 사람이 하느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선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내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각 사람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으며, 그들은 내게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하여 그들의 범죄를 지워버리며, 그들의 죄를 기억도 안 할 것이다.”

97:7.11 (1069.6) 이 위대한 히브리인이 민족의 하느님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한편 영광 속에서 그가 우주 아버지의 신성을 선포하는 소리를 들어보라. 우주 아버지에 대하여 그는 “하늘들은 나의 보좌이며 땅은 나의 발판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하느님은 거룩하고 장엄하고 정의로와 어느 누구도 그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 사막에 거주하는 베도원 족속의 화내고 복수심에 불타며 질투하는 야훼의 개념은 거의 사라졌다. 최극이며 우주적인 야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필사 사람의 마음속에 나타나게 되었고, 인간의 생각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게 되었다. 신성한 공의의 실현은

원시적인 마술과 생물학적인 두려움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사람은 법과 질서의 하나의 우주, 그리고 신뢰할 수 있고 최종적 속성의 우주적 하느님을 알게 되었다.

97:7.12 (1070.1) 그리고 숭고하신 하느님을 전파한 이 전도자는 이 사랑의 하느님을 선포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회개하고 겸손한 영을 가진 자와 함께 거한다.” 그리고 이 위대한 선생은 위로를 주는 더 많은 말들을 하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를 계속 인도하시고 너희 혼을 만족시키실 것이다. 너희는 물을 뿌린 정원과 같이 될 것이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적들이 홍수와 같이 밀려오게 되면, 주님의 영이 그의 앞에 방어물을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을 제거하는 멜기세덱의 복음과 신뢰감을 조성하는 살렘의 종교가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빛을 발하였다.

97:7.13 (1070.2) 선견지명이 있고 용감한 이사야는 최극자 야훼, 사랑 넘치는 하느님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인류에게 애정이 깊으신 아버지의 장엄하심과 우주적인 전능하심에 대한 그의 숭고한 묘사에 의해서 민족적인 야훼를 효과적으로 가렸다. 그 사건 많은 날들 이후로 항상, 서방에서의 가장 높은 하느님 개념은 우주적인 공의와 신성한 자비 그리고 영원한 정의를 포용하게 되었다. 이 위대한 선생은 뛰어난 언어를 통하여 그리고 견줄 데 없는 우아함을 가지고, 모두를-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만능이신 창조자를 묘사하였다.

97:7.14 (1070.3) 포로 된 자들과 함께 한 이 선지자는 바빌로니아의 강가에서 듣는 자기 민족과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설교하였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사야는 약속된 메시아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많은 개념들과 인종적 이기주의 개념들을 반대하는 활동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그의 수고가 모두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다. 만일에 사제들이 오해된 민족주의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지 않았다면, 두 명의 이사야의 가르침이 약속된 메시아를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길을 예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제 8 장. 신성한 역사와 세속적인 역사

97:8.1 (1070.4) 히브리인들의 체험에 관한 역사를 신성한 역사로 보고 세계의 나머지 다른 활동행위들을 세속적인 역사로 보려는 관습이, 역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인간 마음속에 존재하는 혼돈의 대부분을 일으킨 원인이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유대인들의 세속적인 역사가 없기 때문에 발생된다. 바빌로니아에 유배되었던 사제들이 구약 성서에 묘사된 것처럼 하느님이 히브리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으키신 기적으로 보이는 새로운 기록을 이스라엘의 세속적인 역사인 것처럼 준비를 마친 이후에, 그들은 히브리의 관련사들과 관련되는 존재하는 기록들—“이스라엘 왕들의 행적”과 “유대 왕들의 행적”들과 같은 책들, 그리고 히브리 역사에 있어서 다소 정확한 다른 기록들—을 신중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파괴시켰다.

97:8.2 (1070.5) 세속적인 역사에 대한 지독한 압력과 피할 수 없는 강압이 어떻게 해서 포로 되고 외국인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을 그토록 심하게 위협하여 자기들의 역사를 완벽하게 다시 기록하고 옷을 갈아입게 하였는지를 납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복잡한 국가적 체험의 기록을 간단히 조사해 보아야만 하겠다. 유대인들이

삶에서의 적절한 비(非)신학적 철학을 진화시키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는 무시무시한 응징이 따르고 정의에 대해서는 신성한 보상이 따른다는 자신들의 기원적인 개념과 이집트의 개념으로 고심하고 있었다. 욥의 이야기는 이러한 잘못된 철학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었다. 전도서의 노골적인 염세주의는 섭리에 대한 과도한 낙관주의적 신념에 대한 하나의 세속적인 현명한 반응이었다.

97:8.3 (1071.1) 그러나 외국인 통치자들 밑에서 500년 동안 지배를 받은 것은 끈기 있게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는 유대인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었다. 선지자들과 사제들은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였다: “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성실한 유대인이 성서들을 조사하였고, 그의 혼돈은 더욱 심각하게 당황하게 되었다. 어떤 옛 선지자는 하느님이 자신의 “선민”을 보호하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가적인 정의에 대한 자신들의 기준을 다시 정립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신명기를 기록한 서기관은 중대한 선택—선과 악, 축복과 저주의

사이에서—을 묘사하였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인자한 임금이신-구원자를 설파하였다. 예레미야는 내적인 정의—가슴 판에 새겨진 계약—의 시대를 선포하였다. 두 번째 이야기는 희생제물과 대속에 의한 구원에 대해 말하였다. 에스겔은 헌신적인 봉사를 통한 해방을 전파하였고, 에스라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노예가 되어 있었고, 해방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때 다니엘이 임박한 “위기”에 대한 극적인 이야기—영속하는 정의의 통치시대,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훌륭한 모습과 즉각적인 건설의 엄습—를 제시하였다.

^{97:8.4 (1071.2)} 그리고 이러한 모든 잘못된 희망이 그토록 심각한 인종적 실망과 좌절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유대인 영도자들은 너무나 혼돈을 일으킨 나머지 신성한 파라다이스의 아들이 마침내 필사자 모습—사람의 아들로써 육신화 하여 그들에게 도래하였을 때 그의 임무와 사명활동을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받아들이지도 못하였다.

97:8.5 (1071.3)

현대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 역사의 특정한 신(新)시대들에 대해 초자연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실책을 저질러 왔다. 하느님께서 인간적 관련자들의 흐름 속으로 신(神)의 뜻에 의해 개입하는 아버지의 손을 여러 차례 밀어 넣으시기는 하셨지만, 신학적인 독단론과 종교적 미신을 인간 역사의 흐름 속에 이루어진 기적적인 행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초자연적 침전물로 간주하는 것은 오류이다. "지고자들이 사람의 왕국에서 다스린다."는 사실이 세속적인 역사를 소위 신성시되는 역사로 바꾸지는 않는다.

97:8.6 (1071.4)

신약 성서의 저자들과 후대의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은 선의의 뜻으로 유대인 선지자들을 초월적 존재로 만들려고 시도함으로써 히브리 역사에 대한 왜곡을 더욱 심화 시켰다. 그렇게 히브리 역사는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교 저술가들 모두에 의해서 참사를 일으킬 정도로 이용 당하였다. 세속적인 히브리 역사는 철저하게 독단화 되었다. 그것은 신성한 역사의 지어낸 이야기로 바뀌었고 소위 그리스도교 국가들의 도덕적 개념들과 종교적 교훈들과 떼어낼 수 없을만큼 묶이게 되었다.

97:8.7 (1071.5) 히브리 역사에서 중대한 시점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은, 유대인 사제들이 바빌로니아에서 그들 민족의 일상적인 세속의 역사를 지어낸 이야기이자 신성한 역사로 것처럼 돌려놓으려고, 기록되어진 사실들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보여 줄 것이다.

제 9 장. 히브리 역사

97:9.1 (1071.6) 이스라엘 족속은 12개의 부족이 된 적이 없었다.—팔레스타인에 정착한 부족은 셋 또는 넷에 불과하였다. 히브리 국가는 소위 이스라엘 족속들과 가나안-사람들이 연합한 결과로 존재하게 되었다.“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가나안-사람들 속에서 거주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딸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맞이하였고 자기들의 딸들을 가나안-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시집보냈다.” 히브리인들은 가나안-사람들을 팔레스타인 밖으로 쫓아낸 적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에 대한 사제들의 기록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였다고 서슴없이 주장하였다.

97:9.2 (1071.7) 이스라엘인의 의식(意識)은 에브라임이라는 고산지대에서 기원되었다; 후대의 유대인 의식은

유다라는 남부의 씨족에서 유래되었다. 유대인(유다 사람들)은 항상 북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브라임 사람들)의 기록을 모욕하고 나쁘게 평가하려고 하였다.

97:9.3 (1072.1) 거짓된 히브리 역사는 암몬-사람들이 자기 부족들—길르앗-사람들-요단의 동쪽—을 침공한 것에 대항하기 위하여 북부의 씨족들을 사울이 소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3,000명 정도의 군사로 적을 무찔렀으며, 이 공로로 그는 고산지 부족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다. 유배된 사제들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사울의 무리를 330,000명으로 부풀렸고 “유다” 족속도 그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덧붙였다.

97:9.4 (1072.2) 암몬-사람을 무찌른 직후에, 사울은 자기 군사들에 의해 대중적인 방법의 선거로 왕이 되었다. 어떤 사제나 선지자도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제들은 나중에 사울이 신성한 지도에 따라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기록을 삽입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다윗의 유대 나라 왕위를 “거룩한 혈통”으로 세우려는 의도에서였다.

97:9.5 (1072.3) 유대 역사 중에서 가장 심한 왜곡은 다윗에 관한 것이었다. 사울이 암몬-사람들을 무찌른 이후에 (그는 야훼에게로 공을 돌렸음) 필리스틴 사람들은 무장을 하게 되었고 북부 지방의 씨족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다윗과 사울은 결코 화합할 수 없었다. 다윗과 600인은 필리스틴 동맹에 가입하였고 에스드랴론 해안선으로 진격해 올라갔다. 가드에 이르자 필리스틴 사람들은 다윗에게 전쟁터를 떠나라고 명하였다; 그들은 그가 사울에게 동조할 수 있음을 염려하였다. 다윗은 물러났다; 필리스틴 사람들이 공격하여 사울을 격퇴시켰다.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충성하였다면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없었다. 다윗의 무리는 여러 나라의 반항자로 잡다하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의를 피해 달아난 사람들이었다.

97:9.6 (1072.4) 사울이 필리스틴 사람들에 의해 길보아에서 비참하게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야훼는 주변의 가나안-사람들의 눈에 하느님들 중에서 가장 낮은 하느님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대개, 사울의 패배는 야훼가 변심한 탓으로 돌려질 수도 있었지만, 이 때 유대 민족 편집자들은 그것을 예식의 실수 탓으로 돌렸다. 그들은 다윗의 왕권을

위하여 사울과 사무엘의 전통을 하나의 배경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었다.

97:9.7 (1072.5) 적은 숫자의 무리를 가진 다윗은 히브리 성읍이 아닌 헤브론에 자기 근거지를 두었다. 이윽고 그의 동료들은 그를 유다의 새 왕국의 왕으로 선포하였다. 유다는 대개 히브리인이 아닌 족속들—켄-사람, 갈렙-사람, 여부스-사람, 그리고 다른 가나안-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방랑자들—목축업자들—이었으며 그래서 땅의 소유권에 대한 히브리 관념에 헌신하였다. 그들은 사막의 씨족들이 갖는 관념을 지지하였다.

97:9.8 (1072.6) 성스러운 역사와 세속적인 역사 사이의 차이점은 구약 성서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다윗 왕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서로 다른 두 이야기에 의해 잘 나타나고 있다. 그의 직계 추종자들(그의 군대)이 어떻게 그를 왕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세속 이야기의 일부가, 나중에 성스러운 역사에 관하여 길고도 지루한 설명을 준비했던 사제들의 부주의로 기록에 남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신성한 지도에 의해 어떻게 다윗을 그의 형제들

중에서 선택했고 공식적으로 진행했는지 그리고 정교하고도 엄숙한 예식에 따라서 그를 히브리인들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붓고 그런 다음 그를 사울의 후계자로 선포한 일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다.

97:9.9 (1072.6) 아주 여러 번 사제들은, 이스라엘과의 하느님의 기적같은 거래에 대하여 자기들 나름대로 거짓된 이야기를 꾸미면서, 이미 기록에 들어 있는 평범하고도 사실적-일들에 대한 언급들을 충분하게 삭제하는 데에 실패했다.

97:9.10 (1072.7) 다윗은 처음에는 사울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고 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에돔-사람이며 부자인 나발의 과부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게쉬르 왕인 달매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는 히타이트-사람의 아내인 밋세바 말고도 여부스-사람에서 여섯 명의 아내를 취하였다.

97:9.11 (1073.1)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그런 민족으로부터 다윗은 에브라임-사람의 이스라엘 왕국, 사라지는 북부의 왕국의 유산과 전통의 후계자로서 유다라는 신성한 왕국에 대한 허구를 꾸며냈다. 다윗이 거느린 유다라는 다국적 부족은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이방인들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요당한 에브라임의 장로들이 내려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었다.” 군사적인 협박을 가한 후에, 다윗은 여부스-시림들과 조약을 맺었고 연합된 왕국의 수도를 여부스(예루살렘)에 세웠는데, 그곳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매우 강력한 성벽을 가진 성읍이었다. 필리스틴-사람들이 자극을 받아 곧 다윗을 공격하였다. 격심한 전투가 있은 후에 그들은 패배하였고, 야훼는 다시 한 번 “만군의 주 하느님”으로 확립되었다.

97:9.12 (1073.2) 그러나 다윗 무리 대부분이 히브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훼는 어쩔 수 없이 가나안-사람 하느님들과 영광의 일부를 나누게 되었다. 그리하여 너희가 보는 기록에 (유다의 편집자들이 간과하였던) 비밀을 폭로하는 이러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야훼가 내 앞에서 내 적들을 무찌르셨다. 그러므로 그는 그 지방의 이름을 바알-페라짐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다윗 군사의 80퍼센트가 바알을 숭배하였기 때문이었다.

97:9.13 (1073.3) 다윗은, 사울이 길보아에서 패배한 이유가 가나안-사람의 성읍인, 기브온, 에브라임-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그곳을 사울이 공격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것 때문에 야훼가 그를 버렸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사울이 활약하던 시대에도, 다윗은 필리스틴-사람들에 대항하여 길르앗이라는 가나안-사람의 성읍을 방어하였으며, 그 다음에 그는 자기 수도를 가나안-사람의 성읍에 세웠다. 다윗은 가나안-사람들과 타협하는 정책을 계속 고수하면서 사울의 후손들 일곱 명을 기브온-사람들에게 내주어 목을 매달게 하였다.

97:9.14 (1073.4) 필리스틴-사람을 무찌른 후에 다윗은 “야훼의 법궤”를 손에 넣게 되어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으며, 자기 왕국의 공식적인 경배로 야훼를 섬기게 하였다. 그 다음에 그는 이웃 부족들—에돔-사람, 모압-사람, 암몬-사람 그리고 시리아인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였다.

97:9.15 (1073.5) 다윗의 부패한 정치적 기능구조는 히브리 사회관례와는 반대로 북쪽에 있는 땅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기 시작하였으며 마침내는 전에 필리스틴 사람들에

의해 거둬들여졌던 카라반 관세에 대한 통제를 획득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우리야를 죽임으로써 그 포악성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모든 법 소송들은 예루살렘에서 판결되었는데; “장로들”은 더 이상 공의를 행사할 수 없었다. 폭동이 일어난 것은 당연하다. 오늘날 압살롬은 선동가로 불릴 수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가나안-사람이었다. 밋세바의 아들—솔로몬—외에도 왕위를 노리는 아들이 여섯 명이 있었다.

97:9.16 (1073.6)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은 북부의 영향을 받는 모든 정치 조직을 제거하였지만, 자기 아버지가 정권을 잡았을 당시의 전제정치와 징세 제도는 모두 계속하였다. 솔로몬은 사치스러운 왕실 유지와 자신이 면밀하게 계획한 건축 계획을 진행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그 중에는 레바논에 있는 집, 파라오의 딸의 궁전, 야훼의 성전, 왕의 궁전, 그리고 많은 성읍들의 성벽 재건 등이 있었다. 솔로몬은 거대한 규모의 히브리 해군을 창설하여, 시리아 선원들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을 하였다. 그의 후궁들은 거의 1,000명에 이르렀다.

97:9.17 (1073.7) 이 무렵에 실로에 있던 야훼의 성전은 신용을 얻지 못하였고, 국가적인 모든 경배는 여부스에 있는 호화스러운 왕궁 경배실로 집중되었다. 북 왕국은 엘로힘 숭배로 더욱 기울어졌다. 그들은 파라오의 호의를 즐겼는데, 파라오들은 나중에 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고 남 왕국에게 공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97:9.18 (1073.8) 흥망성쇠가 계속되었다—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전쟁들. 4년간의 독립 전쟁과 왕조가 세 번 바뀐 후에, 이스라엘은 육상 무역을 시작한 도시 전제 군주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오므리 왕조차도 시므리가 소유한 땅을 구매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살만에셀 3세가 지중해 연안을 통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그 종말이 신속히 다가왔다. 에브라임의 아합 왕은 10개의 다른 집단들을 모으고 카르카에서 저항하였다; 그 전투에서는 승부가 가려지지 않았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공격을 멈추었지만 그러나 동맹군은 격감되었다. 이 큰 싸움은 구약 성서에 기록조차 되지 않았다.

97:9.19 (1074.1) 아합 왕이 나봇의 땅을 사려 하였을 때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었다. 그의 페니키아인 아내가 아합의

이름을 몰래 사용하여, 나봇이 “엘로힘과 왕”의 이름을 모욕하였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의 땅을 몰수하라는 명령서를 만들었다. 그와 그의 아들들은 즉시 사형에 처해졌다. 활력이 넘치는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나 나봇의 가족을 살인한 것에 대해 아합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그리하여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 중의 하나였던 엘리야는 바알 숭배자들의 땅을 매매하는 태도에 대항하여, 도시들이 농촌을 지배하려는 시도에 대항하여, 땅에 관한 옛 사회관례의 변호자로서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개혁은 농촌 지주인 예후가 방랑하는 사람들의 족장인 여호나답과 힘을 합쳐서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토지 중개인들)을 격퇴시킬 때까지 성공하지 못하였다.

97:9.20 (1074.2) 여호아스와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구하였을 때 새로운 삶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에 사마리아에서는 옛날의 다윗 왕조의 귀족 집단이 무색할 정도로 약탈하는 귀족 집단이 지배하고 있었다. 국가와 회당이 서로 결탁하고 있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엘리야와 아모스와 호세아로 하여금

그들의 비밀 기록을 시작하도록 만들었으며, 이것은 유대인과 그리스도교 성경들의 실제적인 시초가 되었다.

97:9.21 (1074.3) 그러나 북 왕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이집트의 왕과 음모를 꾸며서 아시리아에게 더 이상 공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기 전까지는 역사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나중에 3년 동안 포위 공격이 시작되고 나서야 비로소 북 왕국은 전부 흩어지게 되었다. 에브라임(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사라졌다. 유다—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의 잔존자들”—는 이사야가 “집을 가진 자가 더 갖고 땅을 가진 자가 더 갖는다.”고 말한 것처럼 땅의 소유권은 소수의 무리들에게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예루살렘에는 야훼의 성전 옆에 나란히 바알의 성전이 있게 되었다. 이 공포의 통치시대는, 야훼를 위하여 35년 동안 개혁운동을 벌인 소년 임금 요아스가 이끈 유일신교 폭동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97:9.22 (1074.4) 그 다음의 왕인 아마시아는 에돔-사람들과 그 이웃들이 세금 납부를 거역하는 폭동으로 고통을 당하였다. 현저한 승리를 거둔 후에 그는 북쪽에 있는 이웃들을 공격하였고 똑같이 현저하게 패배를 당하였다.

그러자 시골에 있는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켰으며; 왕을 암살하고 16살이 된 그의 아들을 왕위에 앉혔다. 그가 바로 아마시아인데, 이사야는 그를 웃시야라고 불렀다. 웃시야가 물러난 후에는 상황이 더욱 나빠졌고, 유다는 아시리아의 왕들에게 공물을 바침으로써 100여 년 동안 존재했다. 첫 번째 이사야는 그들에게 야훼의 성읍인 예루살렘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이 함락될 것임을 주저하지 않고 선포하였다.

97:9.23 (1074.5) 유다의 실제적인 파멸은 소년 왕인 므낫세의 통치 아래에서 일한 정치인들의 경쟁적인 타락과 치부로 인하여 초래되었다. 변화하는 경제 체제로 말미암아 바알 경배가 융성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사유지 매매는 야훼의 관념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아시리아의 몰락과 이집트의 패권이 유다를 잠시 동안 해방하였고, 시골 세력이 우세하게 하였다. 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그들은 타락한 정치인들의 예루살렘 동맹을 격퇴시켰다.

97:9.24 (1074.6) 그러나 이 시대는 바빌로니아에 대항하는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 이집트로부터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는 네코의 강력한 무리를 가로막기 위해 요시야가 시도하였을 때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었다. 그는 철저히 실패하였고, 유다는 이집트에게 공물을 제공하는 신세가 되었다. 바알을 섬기는 정치 집단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권세를 장악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실제 이집트인 속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서 바알을 추종하는 정치인들이 사법권과 사제 계급을 통제하는 시대가 되었다. 바알 경배는 땅의 비옥함과 관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 소유권과 관계되는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체계였다.

97:9.25 (1075.1) 느브갓네살에 의해 네코가 패배함으로써, 유다는 바빌로니아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10년 동안 특별한 대우를 받았지만 곧 반란을 일으켰다. 느브갓네살이 그들을 공격하려고 왔을 때, 유다 사람들은 야훼를 자극시키기 위하여 노예들을 풀어주는 등, 사회적인 개혁을 시작하고 있었다. 바빌로니아의 무리가 일시적으로 물러가자,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의 개혁의 마술이 자기들을 구원하였음을 기쁨을 향유하였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임박한 파멸을 선언한 것은 바로 이때였으며, 얼마 안 있어서 느브갓네살이 되돌아왔다.

97:9.26 (1075.2) 그리하여 유다의 종말이 갑작스럽게 임하였다. 그 성읍은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갔다. 야훼-바알 투쟁은 포로가 됨으로써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포로가 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고 유일신 론으로 변하게 되었다.

97:9.27 (1075.3) 바빌로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작은 집단으로서 자기들의 특별한 사회적 경제적 관습들을 유지하면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만약에 자기들의 관념이 우세하다면 그 이방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운명에 대한 그들의 새로운 개념—유대인들이 야훼의 선택받은 종들임에 틀림없다는 개념—이 기원되었다. 구약 성서의 유대 종교는 실제적으로는 포로가 되었던 바빌로니아에서 진화되었다.

97:9.28 (1075.4) 불멸성에 대한 교리 역시 바빌로니아에서 형성되었다. 유대인들은 사회적인 공의에 대한 자기들의 복음에 대한 강조와는 동떨어진 내세의 관념을 생각해 왔었다. 이제는 처음으로 신학이 사회학과 경제학을

대치시키게 되었다. 종교는 인간의 생각과 행위의 체계로 모양을 갖추게 되었고 정치와 사회 그리고 경제로부터 점점 더 분리되게 되었다.

97:9.29 (1075.5) 그리고 유대 민족에 관한 진실이 밝혀지는 만큼, 신성한 역사로 여겨져 온 많은 것들이 일상적인 세속적 역사의 기록에 불과함을 알게 된다. 유대주의가 그리스도교를 발전시킨 토양이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유대인들은 초자연적인 민족이 아니었다.

제 10 장. 히브리 종교

97:10.1 (1075.6) 그들의 영도자들은 자신들이 신성한 은혜로 특별한 자유와 독점권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진리를 모든 나라들에게 전파하는 특별한 봉사를 받은 선택된 민족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이 운명을 성취시키기만 한다면 자기들이 모든 민족들의 영도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며 도래할 메시아가 평화의 영주로서 그들 그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97:10.2 (1075.7)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인 들에 의해 해방되었을 때, 그들은 율법과 희생 제사 그리고 예식에 관계된 자기들

자신의 성직자-지배 규범에 속박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희생 제사와 고행에 대한 모세의 고별 연설 속에 제시되었던 하느님에 대한 훌륭한 이야기를 히브리 씨족들이 거부한 것과 같이, 히브리 민족 중에서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점점 확장되는 자신들의 사제 제도에 대한 규칙과 규정 그리고 예식에 대한 두 번째 이사야의 장엄한 개념을 거부하였다.

97:10.3 (1075.8) 국가적 이기주의,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신앙, 그리고 사제 계급의 점점 더 심해지는 속박과 횡포로 인하여, 영적인 영도자들(다니엘, 에스겔, 학개, 말라기를 제외하고)의 외침은 언제까지나 묵살되었다; 그 시대로부터 세례자 요한의 시대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더 심화되는 영적 퇴보를 체험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주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잃지 않았다; 그리스도 이후 20세기까지도 이 신(神) 개념을 계속 따라왔다.

97:10.4 (1076.1) 모세로부터 세례자 요한에 이르기까지, 사악한 통치자들을 끊임없이 꾸짖고 상업화된 사제들을 비난하며 최극이신 야훼,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 경배를 고수하도록

그 민족에게 계속적으로 훈계하면서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유일신 론의 횃불을 전해주었던 성실한 선생들의 계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갔다.

97:10.5 (1076.2) 한 나라를 이루었던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자기들의 정치적인 정체성을 잃었지만, 유일하신 우주적 하느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갖는 히브리 종교는 흩어진 유랑민들의 가슴속에 계속 살아있다. 그리고 이 종교는 그 추종자들의 최고 가치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다. 유대인의 종교는 한 민족의 이상(理想)들을 보존하였지만, 진리의 영역들에 대한 철학적인 창조적 발굴을 더욱 발전시키고 육성시키는 일에는 실패하였다. 유대인의 종교는 많은 결점들—철학이 부족하였고 심미적인 본질특성이 거의 없었음—을 갖고 있었던 반면, 도덕적인 가치들을 보존시켰으며; 그렇기 때문에 존속되었다. 신(神)에 대한 다른 개념들과 비교할 때, 최극이신 야훼는 개념이 뚜렷하고, 생생하며 개인적이고 도덕적이었다.

97:10.6 (1076.3)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의와 지혜와 진리 그리고 공의를

사랑하였지만, 이러한 신성한 본질특성들에 대한 영적인
납득과 지적인 깨달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미치는 일에
있어서는 기여한 바가 거의 없었다. 히브리 신학이
확대되는 일을 거절하기는 하였지만, 두 개의 다른 세계적
종교, 그리스도교와 마호멧교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97:10.7 (1076.4) 또한 유대인의 종교를 존속되게 한 것은 그 제도
때문이기도 하였다. 종교가 개별존재화된 개인들의
사적(私的)인 실천 관행으로 살아남기는 힘들다. 이것은
계속하여 종교 영도자들의 실수가 되어왔는데: 산업화된
종교의 악한 면들을 보면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기능하는
그 기법을 파괴시키려고 모색하였다. 모든 예식들을
없애는 대신, 그들은 그것을 잘 개선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에스겔은 그의 동료들보다 더욱
현명하였다; 비록 그가 개인적인 도덕적 책임을 저항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가담하기는 하였지만, 또한 그는
우월하고 순수한 예식에 대한 신실한 수호를 세우는 일에
착수하였다.

97:10.8 (1076.5) 그리하여 계속적으로 나타난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그 때까지 유란시아에서 발생되었던 종교의 진화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을 달성하였는데: 그것은 미개한 정령(精靈) 야훼에 대한 야만적인 개념, 폭음을 내면서 폭발하는 시나이 산 화산의 질투심이 많고 잔인한 영 하느님이 나중에는 만유의 창조자이며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인 최극이신 야훼에 대한 고양되고 숭고한 개념으로 점진적이지만 계속적으로 변환되었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이러한 히브리 개념은, 그의 아들인 네바돈의 미가엘의 삶의 모범과 개인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절묘하게 확대되고 더욱 확대되었을 그 시대 전까지는 우주 아버지에 대한 인간적 심상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었다.

97:10.9 (1076.6)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98 편 서방(西方)의 멜기세덱 가르침

98:0.1 (1077.1) 멜기세덱의 가르침이 여러 경로들을 통하여 유럽으로 들어갔지만, 그것들은 주로 이집트를 통하여 전달되었으며 속속들이 헬라화 된 후에 그리고 후대에는 그리스도교화 된 후에 서방의 철학에 체현되었다. 서방

세계의 이상은 기본적으로 소크라테스 방식이었고, 후대의 종교 철학은 예수의 철학이 되었는데 그것은 동방의 진화하는 철학과 종교를 접촉함으로써 변화되고 절충된 상태였으며,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교 교회 안에서 절정에 달하였다.

98:0.2 (1077.2) 유럽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살렘 선교사들이 그들의 활동을 계속하였고, 주기적으로 일어난 많은 예배종파들과 예식적 집단들 속에 점차적으로 흡수되었다. 살렘의 가르침을 순수한 형태로 간직한 사람들 중에 견유학파는 반드시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전도자들은 그리스도 이후 1세기에 로마화된 유럽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새롭게 형성되는 그리스도교에 합병되었다.

98:0.3 (1077.3) 살렘 교리의 대부분은 수많은 서방의 군사적 투쟁들을 위해 싸운 유대인 용병들에 의해서 유럽에 퍼졌다. 고대에 유대인들은 용맹스러운 군인으로 유명했던 만큼 신학적인 독특성으로도 유명하였다.

98:0.4 (1077.4) 그리스 철학의 기본적인 교리와 유대인의 신학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윤리는 근본적으로 초기의 멜기세덱 가르침이 반향된 것이었다.

제 1 장. 그리스인들 사이에서의 살렘 종교

98:1.1 (1077.5) 살렘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임명에 대한 맹세, 경배에 대한 배타적 회중(會衆)을 조직하지 말라고 금한 것과, 선생들 각자가 일종의 사제 역할을 하지 않고 종교적인 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오직 양식과 의복 그리고 거처할 장소만을 받겠다는 약속을 요구하였던 마키벤타에 의해 부과되었던 서약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았더라면 하나의 위대한 종교 체제를 세웠을 것이다. 멜기세덱 선생들이 헬라화-이전의 그리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아담아들과 안드-사람 시대의 전승들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어떤 민족을 발견하였지만, 이 가르침들은 그리스 해안에 점점 더 많은 숫자로 불어났던 열등한 유목민 노예들의 관념과 신앙으로 크게 오염되게 되었다. 이불순물은 피 흘리는 예식과 함께 조잡한 정령 숭배로의 퇴보를 낳았고, 하층 등급의 사람들은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들의 집행을 예식으로 삼기까지 하였다.

98:1.2 (1077.6) 살렘 선생들의 초기 영향력은, 소위 남부 유럽 그리고 동방으로부터의 아리아인 침략에 의해 거의 파괴된 상태에 있었다. 헬라의 이 침입자들은 그들의 아리아인 동족들이 인도로 가져갔던 것들과 유사한 사람모습의-신(神)으로의 하느님 개념들을 가져왔다. 이러한 유입으로 말미암아, 남성하느님들과 여성하느님들로 구성된 그리스의 하느님 체제가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이 종교는 부분적으로는 유입되는 헬라의 야만인들이 갖고 있는 예배종파에 기초를 두었지만, 그것은 또한 그리스의 옛 주민들의 신화들에도 영향을 주었다.

98:1.3 (1078.1) 헬라화 된 그리스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이 주로 어머니 예배종파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민족들에게 자기들의 남성-하느님, 단일신교를 숭배하는 셈족 사람들 사이에 받아들여진 야훼처럼, 종속적인 여러 하느님들을 섬기는 그리스 만신(萬神)의 우두머리인 디아우스-제우스를 믿도록 강요하였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숙명의 여신의 전반적-통제를 보류한 것 외에는 제우스의 개념 속에서 결국에는 참된 유일신 론을 성취할 수 있었다. 최종적인 가치관의 하느님

그 자신이 숙명의 결정자이며 운명의 창조자가 되어야만 한다.

98:1.4 (1078.2) 종교적인 진화에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의 결과로, 마침내 신성이기보다는 인간적인 하느님들이며, 지적인 그리스 사람들이 한 번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하느님들인, 올림퍼스 산의 낙천적인 하느님들에 대한 대중적인 믿음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창조에 대한 이러한 신성을 크게 좋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크게 두려워하는 것도 없었다. 그들은 제우스 하느님을 비롯하여 반신반인인 그의 가족들에 대하여 애국적이고 종족적인 느낌을 가졌지만, 그들을 존경하거나 경배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98:1.5 (1078.3) 헬라 사람들은 성직자 세력에 반대하는 초기 살렘 선생들의 교리에 너무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에서는 어떤 유력한 사제 제도도 세워진 적이 없었다. 심지어는 하느님들의 형상을 만드는 일도 경배에서의 문제이기보다는 오히려 예술의 일이 되었다.

98:1.6 (1078.4) 올림피아의 하느님들은 사람의 전형적인 사람모습의-신(神) 사상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그리스의

신화는 윤리적이기보다는 미학적이었다. 그리스의 종교는 신(神) 집단에 의해 우주가 지배된다는 것을 묘사하는데에서,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그리스의 도덕과 윤리와 철학은 마침내 그 하느님 개념을 훨씬 뛰어넘게 되었으며, 지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 사이의 이러한 불균형은 그것이 인도에서 이미 증명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에게 모험적인 것이었다.

제 2 장. 그리스의 철학적 생각

98:2.1 (1078.5) 소홀히 여겨지고 피상적인 종교는 지속될 수 없는데, 특별히 그것이 그 형태들을 조성할 수 있는 그리고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헌신된 사람들의 가슴을 채워주는 사제 무리들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올림피아의 그 종교는 구원을 약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지도 못하였다; 그 결과로 그것은 소멸될 처지에 처해 있었다. 그것은 생김 이후 1,000년 만에 거의 사라지게 되었으며, 그리스 사람들은 국가적인 종교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올림퍼스의 하느님들이 그들로 하여금 더 나은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98:2.2 (1078.6) 그리스도 이전 6세기 동안 동방과 레반트 지역이 영적(靈的) 의식의 회복과 유일신 론을 깨닫는 새로운 각성을 체험하던 당시의 상황이 이러하였다. 그러나 서방 세계는 이러한 새로운 발전에 참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북부 아프리카도 종교적인 부흥에 광범위하게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에 반하여 그리스인들은 굉장한 지적(知的)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했었고 그러자 종교를 그에 대한 해독제로 더 이상 찾아 나서지 않았고, 더구나 혼(魂)적 배고픔과 영적 불안감 그리고 도덕적 절망감에 대한 치료제가 바로 참된 종교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그들은—철학과 형이상학—깊은 사고(思考)를 함으로써 혼적인 위로를 찾으려고 하였다. 그들은 자아-보존—구원—에 대한 깊은 사색을 버리고 자아-실현과 자아-납득으로 돌아섰던 것이다.

98:2.3 (1078.7) 그리스 사람들은 생존에 대한 믿음을 대치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보증 의식(意識)을 엄밀한 생각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시도하였지만, 철저하게 실패하였다. 헬라화된 민족들의 상류 등급 중에서도 매우 지적인 사람들만이 이러한 새로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이전

세대들의 노예들의 후손인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종교 대용품 받아들이만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98:2.4 (1079.1) 철학자들은 모든 형태의 경배를 경멸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으로는 그들도 모두 살렘 교리에 대한 믿음의 배경에 미약하게나마 물들어 있었는데, 그 교리는 "우주의 지능"과 "하느님에 대한 관념" 그리고 "위대한 근원"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신성한 존재들과 초(超)유한 존재들에 대해 관심을 두는 한에 있어서는, 그들은 솔직하게 말해서 유일신을 믿었다; 올림피아의 남성 하느님들과 여성 하느님들 전체 무리에 대해서는 그다지 인정하지 않았다.

98:2.5 (1079.2) 5세기와 6세기의 그리스 시인들, 특히 핀다로스 같은 사람은, 그리스 종교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그것의 이상들을 증진시키기는 하였지만, 종교가들이라기보다는 예술가들이었다. 그들은 최극의 가치들을 조성하고 보존하는 기법을 개발하지 못하였다.

98:2.6 (1079.3) 크세노파네스는 한 분 하느님을 가르쳤지만, 그의 신(神) 개념은 너무 범신적이어서 필사 사람에게 어떤 개인적 아버지가 될 수 없었다. 아낙사고라스는 최초의

마음인 첫째원인을 이해한 것을 제외한다면 하나의 기계론자에 불과하였다. 소크라테스와 그의 후계자들인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덕목이 지식이다; 선함이 건강한 혼이라고 가르쳤다; 불공정을 저지르며 죄책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그것을 고통받고 당하는 것이 낫다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가르쳤고, 하느님들은 현명하고 선하다고 가르쳤다. 그들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덕행은: 지혜, 용기, 절제, 그리고 공의였다.

98:2.7 (1079.4) 헬라와 히브리 민족들 사이에서의 종교 철학의 진화는 문화적 진보를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관으로 교회의 기능에 대한 대조적인 실례를 제공한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인간의 생각이 너무나도 사제에 의해 통제되고 경전에-지도되었기 때문에 철학과 미학은 전반적으로 종교와 도덕 속에 감추어졌다. 그리스에서는, 사제들과 "신성한 경전들"이 거의 완벽하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마음이 자유롭고 속박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었고, 그 결과로 생각의 깊이에 있어서 놀랄만한 발전이 이룩되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체험으로서의

종교가 조화우주의 자연본성과 실체를 추구하는 지적 탐구와 보조를 맞추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98:2.8 (1079.5) 그리스에서는, 믿음이 사고보다 열등하였고; 팔레스타인에서는, 사고가 믿음의 지배를 받았다.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장점들 대부분은 그것이 히브리인의 도덕성과 그리스인의 생각 둘 모두로부터 매우 많은 것들을 빌려 온 것에 기인한다.

98:2.9 (1079.6) 팔레스타인에서는 종교적 독단론이 너무 정형화되어 더 발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다; 그리스에서는 인간의 생각이 너무나 추상화되어 하느님에 대한 개념이 자기 분석을 통해 범신주의적 사색으로 변하는 안개와 같은 상태가 되었는데, 그것은 브라만 철학자들의 미(未)개인적 무한한 자와는 전혀 달랐다.

98:2.10 (1079.7) 그러나 이 시대의 보통 사람들은 자아-실현과 추상적인 신(神)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관심도 별로 두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개인적인 하느님과 함께 구원에 대한 약속을 갈망하였다. 그들은 철학자들을 추방시켰고, 살렘 예배종파의 잔재들, 혼합된 두 교리들 모두를 박해하였으며, 그 당시에 지중해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신비적 예배종파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몹시 문란하게 빠져들어 갈 준비를 마친 상태에 있었다. 엘류시스의 신비교들이 올림피아의 판테온, 비옥함에 대한 경배의 그리스 식 형태 속에서 자라났으며; 디오니소스의 자연 경배가 범람하였고; 그 예배종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올림픽 형제단이었는데, 그들의 도덕적인 훈계와 구원에 대한 약속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다.

98:2.11 (1080.1) 전체 그리스 사람들이 구원을 달성하는 이 새로운 방법들, 이들 감정적이고 열렬한 예식들에 참여하게 되었다. 어떤 나라도 그토록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술적 철학에서의 그러한 높이를 달성한 적이 없었다; 실천적으로 신(神)과 관련 없이 그리고 인간 구원에 대한 약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그러한 진보된 윤리 체계를 창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어떤 다른 민족도 한 번도, 바로 이들 그리스 사람들이 신비 예배종파들의 미친 듯한 소용돌이 속에 자신들을 던지면서, 그렇게 빨리 지적 침체, 도덕적 타락 그리고 영적 빈곤에서의 그러한 깊은 수렁에 그토록 깊이 그리고 그토록 세차게 빠진 적이 없었다.

98:2.12 (1080.2) 종교들은 철학적 지원 없이도 오랫동안 건디어 왔지만, 철학들은 종교와 어떤 정체화구현 없이는 그렇게 오랫동안 존속된 것이 거의 없어 왔다. 철학이 종교에 대한 관계는 개념이 행동에 대한 관계와 같다. 그러나 이상적인 인간 상태는, 철학, 종교, 과학이 지혜, 신앙, 체험의 공동을 이루는 활동으로 말미암아 의미넘치는 합일체로 융접되어있는 그러한 것에 있다.

제 3 장. 로마에서의 멜기세덱 가르침

98:3.1 (1080.3) 가정(家庭) 하느님들을 경배하는 초기 종교 형태들로부터 전쟁의 하느님인 마르스에 대한 부족적 존경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라틴 지역의 후대 종교가 그리스 그리고 브라만의 지적인 체계들 또는 몇몇 다른 민족들의 더욱 영적인 종교들보다 정치적 계율이 더 강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98:3.2 (1080.4) 그리스도 이전 6세기에 멜기세덱의 복음인 유일신 론이 크게 부흥됨에 있어서, 너무 적은 숫자의 살렘 선교사들이 이태리로 들어갔으므로, 그들로서는 그 새로운 하느님들과 신전들의 화려한 집단과 함께 급속도로 퍼지는 에트루리아 사제신분의 영향력을 극복할

수 없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조직화되어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되었다. 라틴 부족들의 이 종교는 그리스인들의 것처럼 진부하고 타락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것처럼 엄격하고 압제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것의 대부분은 단순한 형식과 맹세 그리고 금기들을 지키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98:3.3 (1080.5) 로마의 종교는 그리스로부터 도입된 광대한 문화적 수입품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결국에는 올림피아의 하느님들 대부분이 옮겨 심어졌고 라틴의 만신에 합병되었다. 그리스인들은 가정에 있는 화로(火爐)—헤스티아가 그 화로의 처녀 여신이었다; 베스타는 가정을 돌보는 로마의 여신이었음—의 불을 오랫동안 경배해 왔었다. 제우스는 쥬피터, 아프로디테는 비너스가 되었다; 그런 식으로 올림피아의 신(神)들이 전해 내려갔다.

98:3.4 (1080.6) 로마 젊은이들의 종교적 입회식은 국가에 대한 봉사를 엄숙하게 헌신하는 행사였다. 시민권에 대한 맹세와 허락은 실제 안에서 종교적 예식이었다. 라틴 사람들은 신전과 제단과 성소를 유지하였으며, 위기가

닥칠 때에는 그곳에서 계시를 받고자 하였다. 그들은
영웅들의 유골을 보관하였고 나중에는 그리스도교
아들들의 것을 보관하였다.

98:3.5 (1080.7) 종교처럼 보이는 애국심의 이러한 형식적이고
냉정한 형태는 붕괴될 운명에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인들의 매우 지적이고 예술적인 경배 체제조차도
신비적 예배종파들의 열정적이고 매우 감정적인 경배
체제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파괴적인 이
예배종파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하느님의 어머니를
섬기는 신비교 분파였는데, 그것은 오늘날 성 베드로
성당이 서있는 로마의 바로 그 자리에 본부를 두고 있었다.

98:3.6 (1080.8) 신흥 로마 국가가 정치적으로는 정복을 하였지만
사교(邪敎)들과 예식들과 신비적 교의들 그리고 이집트와
그리스와 레반트 지역의 하느님 개념들에 의해서 역으로
정복당하였다. 수입된 이 예배종파들은 로마 국가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번창하였는데, 순수하게 정치적이고
시민정부적인 이유들 때문에 신비적 교의들을 파괴하고
옛날의 정치적인 종교를 부흥시키는 일에 영웅적이고도

어느 정도는 성공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시대까지 계속되었다.

98:3.7 (1081.1) 국가 종교의 사제들 중에서 한 사람은 유일하신 하느님, 모든 초자연적 존재들을 지배하는 최종적인 신(神)에 대한 교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살렘 선생들이 초기에 시도하였던 것들을 아우구스투스에게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관념이 그 황제를 강하게 사로잡게 되어 그는 많은 신전들을 세웠고 아름다운 형상들로 그것들을 장식하였고, 국가적인 사제 제도를 재구성하였으며, 국교를 다시 세우고,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들 중에서 높은 사제로 지정하였으며, 황제로서 자기 자신이 최극자 하느님이라고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98:3.8 (1081.2) 아우구스투스를 경배하는 이 새로운 종교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유대인들의 고향인 팔레스타인을 제외한 제국의 전역에서 번창하였고 신봉되었다. 그리고 인간 하느님들의 이 시대는 공인된 그 로마 예배종파가 40명 이상의 자아를-높인 인간 신(神)들을 명부에 올릴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기적적으로 태어났고 초인간적인 다른 속성들을 가졌다고 주장하였다.

^{98:3.9 (1081.3)} 점점 감소하는 살렘 신자들 집단의 마지막 저항이 진지한 전도자들의 집단인 견유학파 사람들에게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그들의 거칠고 몰상식한 종교 예식을 버리고, 그리스 사람들의 철학과 접촉함으로써 변경되고 오염되기 이전의, 멜기세덱의 복음을 체현하고 있는 경배의 형태로 돌아가라고 간곡하게 권유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견유학파의 주장을 거부하였으며, 개인적인 구원의 희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분전환, 흥분 그리고 오락에 대한 열망을 만족시키는 신비주의적 교의로 빠져들어가기를 선호하였다.

제 4 장. 신비 예배종파

^{98:4.1 (1081.4)} 그리스-로마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원시적인 가족 종교와 국가 종교를 잃어버린 채로 그리고 그리스 철학의 의미를 파악할 수도 없고 또 원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집트와 레반트 지역으로부터 온 장엄하고 감정적인 신비주의적 예배종파들에게로

관심을 돌렸다. 일반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약속—현재를 위한 종교적 위로와 죽음 이후의 불멸성에 대한 희망의 확신—을 갈망하였다.

98:4.2 (1081.5) 세 개의 신비적 예배종파들이 가장 널리 퍼졌다:

98:4.3 (1081.6) 1. 퀴벨레와 그녀의 아들 아티스에 대한 프리지아의 예배종파.

98:4.4 (1081.7) 2. 오시리스와 그의 어머니 이시스에 대한 이집트의 예배종파.

98:4.5 (1081.8) 3. 미드라를 죄 많은 인류의 구원자와 대속자로 경배하는 이란의 예배종파.

98:4.6 (1081.9) 프리지아와 이집트의 신비적 교의들은 신성한 아들(각각 아티스와 오시리스)이 이미 죽음을 체험하고 신성한 힘에 의해 부활되었다고 가르쳤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 신비 상태로 올바르게 가입된 사람 그리고 신(神)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념일을 존경을 담아 축하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것에 의하여 그의 신성한 본성과 그의 불멸성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98:4.7 (1081.10) 프리지아의 예식은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타락한 것이다; 피를 흘리는 그들의 축제는 레반트 지역의 신비적 교의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원시적인 상태가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불길한 금요일이 가장 성스러운 날인데, 그 날은 아티스의 자아에-부과한 죽음을 기념하는 “피의 날”이다. 아티스의 희생과 죽음을 3일 동안 축하한 후에, 그 축제는 그의 부활을 축하하며 즐기는 분위기로 바뀐다.

98:4.8 (1082.1) 이시스와 오시리스에 대한 경배 예식은 프리지아 예배종파의 그것보다 더 세련되고 인상적이다. 이집트의 이 예식은 옛날의 나일 하느님, 죽었다가 살아난 하느님에 대한 전설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개념은 해마다 되풀이하여 살아있는 모든 식물들이 동면한 상태에 있다가 봄철에 다시 회복되어 자라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기인되었다. 신성의 실현에 대한 “열광”으로 인도해 준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러한 신비적 예배종파들의 광란에 가까운 예식과 떠들썩한 의식 절차는 때로는 가장 메스꺼운 것이기도 하였다.

제 5 장. 미드라 예배종파

98:5.1 (1082.2) 프리지아와 이집트의 신비적 교의들은 결국에는 모든 신비적 예배종파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예배종파인 미트라 경배 앞에 길을 비켜주게 되었다. 미트라 예배종파는 광범위한 인간 자연본성에 호소력을 나타내었고 그 앞에 있었던 두 가지를 점차적으로 대체시키게 되었다. 미트라교는 레반트 지역에서 모집된 로마 군인들의 전도를 통하여 로마 제국 전역에 퍼졌는데, 그곳에서 이 종교가 유행된 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신앙을 가져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이 종교 예식은 그 전에 있었던 신비적 예배종파들보다 훨씬 개량된 것이었다.

98:5.2 (1082.3) 미트라 예배종파는 이란에서 생겼으며 조로아스터 추종자들의 군사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에서 오랫동안 존속되었다. 그러나 미트라교가 로마에 전파될 무렵에는, 그것이 조로아스터의 가르침들을 대부분 흡수함으로써 이미 크게 개선된 상태에 있었다. 조로아스터의 종교가 후대에 나타난 그리스도교에 영향을 미친 것은 주로 미트라 예배종파를 통해서였다.

98:5.3 (1082.4) 미트라 예배종파는 위대한 바위에서 기원되고, 용맹한 공훈을 세우고, 그리고 그의 화살로 꿰뚫은 바위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게 한 호전적인 하느님을 묘사하였다. 홍수가 일어났고, 그로부터 한 사람이 특별히 지어진 배를 타고 도피하였으며 그리고 그가 하늘들로 올라가기 전에 미트라가 태양-하느님과 함께 축하하였던 최후의 만찬이 있었다. 이 태양-하느님, 솔 인빅터스는 조로아스터교의 아후라-마즈다 신(神) 개념이 퇴화된 것이었다. 미트라는 어두움의 하느님과의 투쟁 속에서 살아남은 태양-하느님의 투사로 여겨졌다. 그리고 신화적인 신성한 황소를 살해한 보상으로, 미트라는 불멸의 존재가 되었고 높은 곳에 있는 하느님들 사이에서 인간 종족을 위한 중재자의 신분으로 고양된 존재가 되었다.

98:5.4 (1082.5) 이 예배종파의 지지자들은 동굴 속에서 또는 다른 비밀 장소들에서 경배를 드렸고, 성가를 불렀으며, 마술의 말들을 중얼거렸고, 희생 제물로 바쳤던 동물들의 고기를 먹었으며 그 피를 마셨다. 그들은 하루에 세 번 경배를 드렸고 태양신의 날에는 특별한 주간 예식을 올렸으며 12월 20일인 미드라의 연중 축제일에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공들인 행사를 가졌다. 그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으로, 죽은 후에는 즉시 미드라의 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심판의 날까지 행복을 누리며 머물러 있다고 믿었다. 심판의 날에는 신실한 자들을 영접하기 위해 미드라가 가진 천국의 열쇠들이 파라다이스의 문들을 열 것이다; 그 후에는 미드라가 지구에 돌아옴으로써, 산 자나 죽은 자나 세례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절멸될 것이라고 한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가 심판을 받기 위해 미드라 앞으로 인도된다고 가르쳤으며, 세상이 끝나는 날에는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자기 무덤에서 나온 모든 죽은 자들을 미드라가 소집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사악한 자들은 불에 태워질 것이며, 의로운 자들은 미드라와 함께 언제까지나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98:5.5 (1082.6) 처음에는 그것이 오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종교였으며, 믿는 자들이 연속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곱 가지의 다른 계층들이 있었다. 나중에는, 믿는 자들의 아내들과 딸들이 미드라의 신전 가까이에 있는 위대한 어머니의 신전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였다. 여인들의

예배종파는 미드라 예식과, 아티스의 어머니인 퀴벨레에 대한 프리지아 예배종파의 예식이 혼합된 것이었다.

제 6 장. 미드라교와 그리스도교

98:6.1 (1083.1) 신비적 예배종파들과 그리스도교가 도래하기 전에는, 개인적인 종교가 북아프리카와 유럽의 문명화된 곳에서 하나의 독립된 제도로 발전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것은 주로 가족적인, 도시 국가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제국적인 일이었다. 헬라화 된 그리스 사람들은 중앙 집권화 된 경배 체제를 진화시킨 적이 없었다; 예식은 지방마다 드러졌고; 사제 계급도 없었으며 “신성한 문서”도 없었다. 로마 사람들과 거의 마찬가지로, 그들의 종교적 제도는 보다 높은 도덕적 영적 가치들을 보존시키기 위한 강력한 힘을 추진하는 대리자가 결여되어 있었다. 종교의 제도화가 대개 그것의 영적 본질특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실인 반면, 어느 정도의, 다소간의 제도적인 조직의 도움 없이 살아남는 일에 그렇게 성공적이었던 종교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98:6.2 (1083.2) 서방의 종교는 회의파, 견유학파, 쾌락주의파, 금욕주의파가 나타날 때까지,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미트라교와 그리스도교라는 바울의 새로운 종교 사이의 엄청난 경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쇠약한 상태에 있었다.

98:6.3 (1083.3) 그리스도 이후 3세기 동안, 미트라 교회들과 그리스도교 교회들은 외형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예식의 성격에 있어서 매우 흡사하였다. 그러한 경배 장소들 대부분은 지하에 있었고, 죄의 저주를 받은 인간 종족에게 구원을 가져온 구원자의 고난을 다양하게 묘사하는 배경이 그려진 제단들을 둘 모두 갖고 있었다.

98:6.4 (1083.4) 미트라 경배자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성스러운 물속에 손가락들을 적시는 것이 항상 실천 관행이 되어 왔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동시에 두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근처에 있는 그리스도교 교회들 대부분에게 이러한 관습을 소개하였다. 두 종교들은 모두 세례를 베풀었으며 빵과 포도주로 하는 성례를 거행하였다. 미트라와 예수의 성격들을 제외하고, 미트라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서 큰 차이점 하나는, 전자는 미트라교를 장려하는 반면 후자는 극단적으로 평화를 옹호하였다는 점이다. 다른

종교들(후대의 그리스도교는 제외하고)에 대한 미트라교의 관대함은 그것이 마침내 타락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두 종교들 사이의 갈등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여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교 신앙의 충분한 동료관계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었다.

98:6.5 (1083.5) 결국에는 명칭상의 그리스도교 신앙이 서방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스 철학은 윤리적 가치 개념들을; 미트라교는 경배 행사의 예식을;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도덕적 그리고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그와 같은 보존 기법을 제공하였다.

제 7 장. 그리스도교

98:7.1 (1083.6) 창조자 아들은 화가 나신 하느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유란시아의 인간성에 자신을 증여하시고 필사자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화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보다는 오히려 모든 인류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에서의 인지와 그리고 하느님과 그들의 아들관계에서의 실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속죄 교리의 위대한 주창자도 이 진리의 일부분을 깨달았는데, 이는 그가 “세상으로

하여금 그 자신과 화해시키시려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고 선포하였기 때문이다.

98:7.2 (1083.7) 그리스도교라는 종교의 기원과 보급을 취급하는 것은 이 글의 권한 밖의 일이다. 그것이 나사렛 예수의 개인성, 네바돈의 미가엘 아들이 인간적으로 육신화 되어 유란시아에 그리스도로 알려진 기름부음을 받은 한 사람을 기반으로 하여 세워졌다고 말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리스도교는 이 갈릴리 사람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레반트 지역과 서방 전역에 퍼졌으며, 그들의 선교적 열정은 유명한 그들의 선조들인 셋-사람들과 셈족들 그리고 그들과 동시대 사람들인 진지한 불교 선생들과 견줄 만 하였다.

98:7.3 (1084.1) 유란시아 신앙 체계의 하나인 그리스도교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들, 영향들, 신앙들, 예배종파들, 그리고 개인적인 개별 태도들이 혼합됨으로써 형성되었다:

98:7.4 (1084.2) 1. 지나간 4,000년 동안 발생되었던 서방과 동방의 모든 종교들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들인 멜기세덱의 가르침들.

98:7.5 (1084.3) 2. 섭리와 최극이신 야훼 둘 모두에 대한 믿음, 도덕, 윤리, 신학에 대한 히브리의 체계.

98:7.6 (1084.4) 3. 유대교와 미트라교 둘 모두에게 이미 그 흔적을 남겼던, 조화우주 선과 악 사이의 투쟁에 대한 조로아스터의 관념. 미트라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투쟁들에 부수적으로 따라온 오랫동안의 접촉을 통하여, 그 이란 선지자의 신조들은 예수의 가르침들에 대한 헬라화 되고 라틴화 된 변형된 형태의 독단론, 교의 그리고 우주론의 철학적 기질과 구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요소가 되었다.

98:7.7 (1084.5) 4. 신비적 예배종파들, 특별히 미트라교 그리고 프리지아 예배종파에서의 위대한 어머니 경배. 유란시아에서의 예수의 탄생 전설조차도 이란의 생존자-영웅인 미트라에 기적적인 탄생에 대한 로마식 변형에 의해 오염되었는데, 그가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임박한 이 사건이 천사들에 의해서 이미 알려졌던 오직 선물을 간직한 소수의 목동들에 의해서만 목격되었다고 생각되어왔다.

98:7.8 (1084.6) 5. 요셉의 아들 여호수아의 인간 일생에 대한 역사적 사실, 하느님의 아들인,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로서의 나사렛 예수의 실체성.

98:7.9 (1084.7) 6. 타루수스의 바울이 가진 개인적 견해. 그리고 그가 청년기였을 때 미트라교가 타루수스의 지배적인 종교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야만 할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개종시킨 사람들에게 선의에서 쓴 자신의 편지들이 어느 날 더 후대의 그리스도교인 들에 의해 "하느님의 말씀"으로 간주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선의를 가진 그러한 선생들은 자신들이 쓴 글들이 후대의 계승자들에 의해 사용되어지기에 알맞게 할 의무가 없었음이 당연하다.

98:7.10 (1084.8) 7.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으로부터 그리스를 거쳐 시라큐스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헬라 문명에 젖은 사람들의 철학적인 생각. 그리스인들의 철학은 다른 어떤 현행 종교 체계보다도 바울의 그리스도교 개조품에 더 잘 조화될 수 있었으며 그것은 서방에서 그리스도교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바울의 신학과

결부된 그리스의 철학은 여전히 유럽의 윤리적인 기초가 되고 있다.

98:7.11 (1084.9) 예수의 기원적인 가르침들이 서방에 침투되면서, 그것들은 서방화 되었고, 그것들이 서방화 되면서, 그것들은 모든 종족들과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잠재적으로 보편적인 호소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그리스도교는 백인 종족들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사회 관례에 잘 적응된 종교가 되었다. 그것이 비록, 그 가르침의 길을 따르려고 진지하게 추구하는 그러한 개별존재들에게 아직도 예수에 관한 하나의 아름다운 종교를 용감하게 묘사하지만, 예수의 종교가 되기를 그만둔 지는 오래되었다. 그것은 예수를 하느님으로부터 메시아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로서 영화롭게 하고 있지만, 주(主)의 개인적인 복음은 대부분 잊혀져 있다: 주(主)의 개인적인 복음은 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모든 사람의 우주적 형제신분이다.

98:7.12 (1085.1) 그리고 이것은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유란시아에 준 가르침들에 대한 긴 이야기이다. 비상시에 활동하는

네바돈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유란시아에 증여한 이후로 거의 4,000년이 되고 있으며, 그 당시에 주었던 “엘 엘리온, 지고자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은 모든 인종들과 민족들 속으로 침투되어 왔다. 그리고 마키벤타는 자신의 특수한 증여의 목적 성취에 있어서 성공적이었다;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출현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느님 개념이 남자들과 여자들의 가슴속에 실존하고 있었는데, 하느님에 대한 바로 그 개념은 우주 아버지의 자녀들이 공간 속에서 빙빙 돌고 있는 행성들 위에서 흥미롭게 일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지각색의 그 자녀들의 영적 체험 속에서 여전히 새롭게 불타고 있다.

98:7.13 (1085.2)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99 편 종교의 사회적인 문제

99:0.1 (1086.1) 종교는 사회의 세속적 제도들과 최소한의 관계를 가질 때 스스로의 가장 높은 사회적 역할을 성취할 수 있다. 과거 시대에서는, 사회 개혁이 대체로 도덕적 영역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종교가 경제 체계와 정치 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변화에 자신의 태도를 적응시킬 필요가 없었다. 종교의 주요 과제는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문화의 존재하는 사회 질서 안에서 선으로 악을 대치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종교는 사회의 기존 질서를 간접적으로 영속화시키는, 문명에서의 실존적 유형이 유지되도록 조장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99:0.2 (1086.2) 아무튼 종교가 새로운 사회 질서의 창조나 혹은 옛 질서의 보존에 직접적으로 관련해서는 안된다. 참된 종교는 하나의 사회적 진화 수단이 되어 충돌을 일으키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참된 종교는 새로운 경제 여건들과 문화적 필요성에 맞추어 스스로의 제도를 조절하고 활용성을 적응하려는 사회의 지적(知的) 노력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99:0.3 (1086.3) 종교는 과거 여러 세기의 간헐적인 사회 개혁들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광범위하게 계속되고 있는 사회적 재건에 따른 조절과 마주보기를 불가피하게 요청받고 있다. 삶의 여건들이 너무나 빨리 바뀌기 때문에 제도 개선은 크게 가속화되지 않을 수 없으며, 종교는 이러한 새롭고도 언제까지나-변화하는

사회 질서에 맞추어서 스스로의 적응을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1 장. 종교와 사회적 재건

99:1.1 (1086.4) 기계적 발명과 지식의 확산이 문명을 변경시키고 있다; 문화적 재앙이 피해야만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경제적인 조절과 사회적인 변화들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새로운 그리고 도래하고 있는 사회 질서는 천 년 동안에 만족스럽게 정착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 종족은 변화, 조절 그리고 재(再)-조절의 과정에 맞추어 재(再)-일치되는 것을 이루어야만 한다. 인류는 새롭고 그리고 계시되지 않은 행성 운명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다.

99:1.2 (1086.5) 종교는 이러한 언제까지나-변화하는 여건들과 결코-끝남이 없는 경제적 조절의 가운데에서 역동적으로 기능하면서, 도덕적 안정성과 영적 진보를 위해 기세넘치는 영향력이 되어야만 한다.

99:1.3 (1086.6) 유란시아 사회는 과거 시대에서와 같이 안정되기를 결코 바랄 수가 없다. 사회라는 증기선이 증기를 내뿜으면서 기존의 전통으로 보호되어 있던 항구를 떠났으며 이제 진화하는 운명의 높은 바다에서

항해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사람의 혼(魂)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었으니, 이제 도덕성으로 이루어진 해도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종교적 안내로 이루어진 나침반을 참을성있게 지켜보아야 한다. 하나의 사회적 영향력으로서의 종교의 지상 임무는, 문명이 어떤 위상에서 다른 위상으로, 문화가 어떤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는 이들 위험한 과도기에 인류의 이상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99:1.4 (1087.1) 종교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새로운 임무는 없지만, 지금 이들 새롭고도 재빠르게 변화하는 모든 인간의 상황 속에서 하나의 지혜로운 안내자로 그리고 노련한 조언자로 기능하라고 긴급하게 소명(召命)을 받고 있다. 사회는 점점 더 기계적이고 점점 더 조밀해지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결정적으로 상호-의존하고 있다. 종교는 이러한 새롭고도 친밀한 상호-연관들이 서로 쌍방을 퇴행적으로 만들거나 심지어 파괴적으로 만드는 것이 방지되도록 기능 해야만 한다. 종교는 진보의 효소들이 문명의 문화적 맛을 파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러한 조화우주 소금으로서 작용해야만 한다. 이들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격변은 오직 종교의

사명활동에 의해서만 오래 지속되는 형제신분으로 귀결될 수 있다.

99:1.5 (1087.2) 하느님이 없는 인도주의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고상한 태도이다, 그러나 참된 종교만이 사회적 집단에서 한 집단의 필요와 고난에 대해 다른 집단의 책임감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과거에는, 상류층의 사람들이 어떤 도움도 없는 하류 계층의 고통과 억압에 귀를 막고 있는 동안 제도적 종교가 수동적으로도 존속할 수 있었지만, 현대에는 이들 하류 사회 계층이 더 이상 그토록 비참하게 무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어떤 도움도 없는 처지가 아니다.

99:1.6 (1087.3) 종교는 사회적 재건과 경제적 재조직이라는 세속적인 일에 근본적으로 개입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도덕적 명령들과 영적 교훈들에 대해, 인간적 삶과 초월적인 생존에 대한 그것의 진보적 철학에 대해 분명하고도 활기 있게 다시 진술함으로써 문명에 있어서의 이러한 모든 진보들과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종교의 영은 영원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형태는 인간 언어 사전이 개편될 때마다 다시 진술되어야만 한다.

제 2 장. 제도적 종교의 약점

99:2.1 (1087.4) 제도적인 종교는 지금 절박한 전 세계적 사회 재건과 경제적 재조직에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없고 지도력도 제공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그것은 많거나 적거나 다소간, 반드시 재건을 겪어야하는 운명을 가진, 그 사회 계층과 경제 체계에서의 유기적인 부분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오직 개인적 영적 체험의 실제 종교만이 문명의 현재 위기에서,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창조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99:2.2 (1087.5) 제도적인 종교는 현재 악순환의 막다른 궁지에 갇혀 있다. 그것은 먼저 그 자신을 재건하지 않고서는 사회를 재건시킬 수 없다; 그러나 기존 질서에서 너무나 많이 집대성을 이루는 부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가 근본적으로 재건되기까지는 그 자신을 재건시킬 수 없다.

99:2.3 (1087.6) 종교인들은 사회와 산업 그리고 정치 분야에서 집단들이나 당파들 또는 학파들이 아니라

개별존재들로서 활동해야만 한다. 그렇게 활동하려는 종교 집단은, 종교적인 활동들과는 상관없이, 곧 정치적 정당이나 경제적 조직 또는 사회적 제도로 바뀐다. 종교적 집단화주의(集團化主義)는 그 노력을 종교적인 목적 추진으로 국한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99:2.4 (1087.7) 종교가들은 그들의 종교가 그들에게 향상된 조화우주적 통찰력을 자질로서 부여해 왔고, 그리고 우월한 사회적 지혜 곧, 하느님을 최극으로 사랑하려는 그리고 각 사람을 하늘왕국 안에서의 하나의 형제로서 사랑하려는 진지한 욕망에서 탄생되는 그러한 지혜를 수여해 온 것을 제외한다면, 사회를 재건하는 과제에서 비종교가들보다도 더 큰 어떤 가치는 없다. 이상적인 사회 계층은 그 안에서 각 사람마다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99:2.5 (1087.8) 제도화된 교회가 과거에는 기존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질서들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사회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것이 살아남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행동을 조속히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의 유일한 본연의 태도는 비폭력에 대한 가르침, 격렬한 혁명

대신 평화로운 진화—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 선한 뜻이 이루어짐—에 대한 교리 속에 있다.

99:2.6 (1088.1) 현대 종교는 신속하게 바뀌는 사회적 변화들을 향하여 자신의 태도를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직 그 자신이 너무나도 속속들이 전통화 되고, 독단화 되고, 그리고 제도화 되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체험의 종교는 이 모든 사회적 발전들과 경제적 격변들을 계속 앞서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은 도덕적 안정, 사회적 안내 그리고 영적 선도자로 계속 활동한다. 참된 종교는 하느님을 알고 그와 같이 되려고 분투하는 체험으로부터 태어나는 그 지혜와 훌륭한 문화를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해준다.

제 3 장. 종교와 종교인

99:3.1 (1088.2) 초기의 그리스도교는 시민 사회의 모든 장애물들과 사회적인 약속들 그리고 경제적인 동맹관계들로부터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다.

오직 후대의 제도화 된 그리스도교만이 서방 문명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구조의 근본적인 한 부분이 되었다.

99:3.2 (1088.3) 하늘의 왕국은 사회적 계층도 경제적 계층도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느님을-아는 개별존재들의 영적인 형제신분일 뿐이다. 그러한 형제신분은 참말로, 그 자체로 몹시 놀라운 정치적 경제적 반향(反響)을 수반하는 새롭고도 경이로운 사회적 현상이다.

99:3.3 (1088.4) 종교인은 사회적인 고난에 냉담하지 않고, 시민 사회의 불공정에 대해 관심이 없지 않으며, 경제적인 의견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지 않고, 정치적인 횡포에 무감각하지도 않다. 종교는 사회 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개별 시민을 영성화 시키고 이상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간접적으로는, 이들 개별 종교인들이 다양한 사회적, 도덕적, 경제적 정치적 집단들의 활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구성원들이 될 때 문화적 문명이 그들의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99:3.4 (1088.5) 고도의 문화적 문명의 달성은 처음에는 시민의 이상적인 유형을 요구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러한 시민이 그것을 가지고 그러한 진보된 인간 사회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제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상적이고 적절한 사회적 기능구조들을 요구한다.

99:3.5 (1088.6) 교회는, 과다하게 거짓된 정서 때문에, 오랫동안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을 돌보아 왔으며, 이것이 모두 좋은 것이 되어 왔지만, 바로 이 정서가 어리석게도, 문명의 진보를 엄청나게 지체시켜왔던 인종적으로 퇴화된 혈통들을 영존시키도록 이끌어왔다.

99:3.6 (1088.7) 개별적으로 사회 재건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제도화된 종교를 맹렬히 거부하는 반면, 자기들의 사회 개혁들을 선전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열광적인 종교적 속성을 보인다. 그래서 개인적이면서 다소 인식되지 않은 종교적인 자극이 지금-현재의 사회 재건 계획에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99:3.7 (1088.8) 인식되지 않고 무의식적인 이러한 모든 유형의 종교 활동의 큰 약점은 그것이 공개적인 종교 비판으로부터 유익을 얻어서 그것을 통해 자아-수정의 유익한 차원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종교가 건설적인 비판에 의해 단련 되지 않고, 철학에 의해 확대되지 않고, 과학에 의해 정화되지 않고, 충성스러운 교제에 의해서

양육되지 않는다면, 종교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99:3.8 (1088.9)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여한 각 나라가 자신의 종교를 군사적인 선전물로 악용할 때에는, 종교가 왜곡되고 비뚤어져서 잘못된 목적을 추구하는 상태로 빠지는 큰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사랑이 결여된 열의는 항상 종교에 해로운 반면, 박해는 종교 활동들을 전환시켜서 어느 정도 사회적이거나 신학적인 추진력을 성취하게 한다.

99:3.9 (1089.1) 종교는 오직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해서만 부정(不淨)한 세속적 연관들로부터 자유를 유지할 수 있다:

99:3.10 (1089.2) 1. 비판적으로 교정하는 철학.

99:3.11 (1089.3) 2. 모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연관들로부터의 해방.

99:3.12 (1089.4) 3. 창조적이고 위안을 주며 사랑으로 확대되는 연대감.

99:3.13 (1089.5) 4. 영적인 통찰력에 대한 진보적인 향상과
조화우주 가치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

99:3.14 (1089.6) 5. 과학적인 정신적 태도의 보상에 의한, 광신적
태도 예방.

99:3.15 (1089.7) 비록 한 개별 시민으로서 그러한 한 사람의
종교인이 어떤 사회적이거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재건
운동에서 탁월한 영도자가 될 수 있을지라도, 어떤
집단으로서의 종교인들은 종교 이외의 어떤 것에도 결코
자신들을 관련시키지 않아야 한다.

99:3.16 (1089.7) 어렵지만 바람직한 모든 사회적 봉사들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성공을 거두도록 개별 시민을
인도하게 될 때 그의 속에 그러한 조화우주 충성심을
조성하고 유지하며 영감을 주는 것이 종교가 할 일이다.

제 4 장. 과도기 곤경

99:4.1 (1089.9) 참된 종교는 그 종교인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향기를 품게 하며 인간 동료관계 속에 통찰력을 조성한다.
그러나 종교 집단들을 형식화시키는 것은 그 집단의
조직을 촉진시켰던 바로 그 가치들을 여러 번 파괴시킨다.

인간적인 우정과 신성한 종교는 각각의 성장이 균등하고
조화-협동을 이룬다면 서로 도움을 주는 것들이고
의의(意義)깊은 밝은 빛을 발하게 된다. 종교는 모든
집단적 관계적-연합들—가정들, 학교들, 모임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그것은 새로운 가치들이
적용되게 하고 참된 모든 유머를 고양시킨다.

99:4.2 (1089.10) 사회적인 지도력은 영적 통찰력에 의해
변환된다; 종교는 모든 집단적 활동들로 하여금 그들의
참된 목표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막아준다. 어린이들과
더불어, 종교는 가정생활의 결함을 이룩하는 위대한
역할을 하는데, 생생하고도 성장하는 신앙이 그렇게 한다.
가정생활은 자녀들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종교 없이
유지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부족함은 긴밀한 이 인간
관계적-연합의 어려움들을 엄청나게 증가시킨다.
20세기의 초기에는 수십 년 동안 가정생활이 개인적 종교
체험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데 그 고난은
옛날의 종교적 충성으로부터, 창발하는 새로운 의미들과
가치들로의 전환에 따른 타락으로 인한 것이었다.

99:4.3 (1089.11) 참된 종교는 매일매일의 일생에서의 평범한 실체들과 역동적으로 직면하는, 의미 넘치는 삶의 길이다. 그러나 만일 종교가 성격에서의 개별존재의 발전을 자극하고 그리고 개인성의 집대성활동을 증강시키고자 한다면, 종교는 결코 표준화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종교가 체험의 평가를 자극하고, 가치-유혹물로서 봉사하려면, 결코 틀에 박혀서는 안 된다. 만약에 종교가 최극 충성을 촉진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코 형식화되어서는 안 된다.

99:4.4 (1089.12) 문명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성장에서 그 어떤 격변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종교가 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의 주권이 지배하는 그러한 개별존재의 체험을 육성한다면, 진실되고 가치가 있으니, 이는 그러한 것이 최극 실체의 참된 영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과 경배를 통하여 사람과의 동료관계로서 그리고 하느님과의 아들관계로서 의미넘치게 되는 것이다.

99:4.5 (1090.1) 결국, 사람이 무엇을 아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행동을 결정하고 그리고 개인적 행위를 지배한다. 순전히 사실적 지식은 만일 그것이

감정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사람에게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나 종교의 활성화는 초-감정적이며, 그것은 필사자의 일생 안에서 영적 에너지들과 접촉하고 그것을 풀어줌으로서 초월 차원에서 인간 체험 전체를 통합한다.

99:4.6 (1090.2) 심리학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시기인 20세기 동안에, 경제적 격변들과 도덕적 역류들 그리고 과학 시대의 회오리 바람같은 과도기의 사회적 격랑의 한가운데에서,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인간적으로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들은 초조하고,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고, 자신이 없으며, 그리고 안정을 하지 못한다; 세계 역사상 전례 없이, 그들은 건전한 종교가 주는 위로와 안정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과학적 성취와 기계적 발전에 직면하면서, 영적인 침체와 철학적 혼돈이 있다.

99:4.7 (1090.3) 종교가 사심-없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적 봉사를 위한 그 동기를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점점 더 사적(私的)인 문제가—개인적인 체험이—되더라도 아무런 위험이 없다. 종교는 많은 2차적인 영향 때문에

시달림을 받아왔다: 이는 문화의 갑작스런 혼합, 신조들의 혼재, 교회 권위의 실추, 가족 일생의 변화, 아울러 도시화와 기계화이다.

99:4.8 (1090.4) 사람의 가장 큰 영적 위협은 부분적인 진보, 완결되지 않은 성장의 곤경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의 계시 종교를 즉각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두려움의 진화 종교를 저버리는 것이다. 현대 과학 특히 심리학은 두려움, 미신 그리고 감정에 크게 의존하는 그런 종교들을 단지 약화시켜 왔다.

99:4.9 (1090.5) 과도기는 항상 혼란이 함께 따라오게 되며, 그리고 서로 다투고 있는 다음과 같은 종교에서의 세 가지 철학들 간에 있는 거대한 분투가 끝나기 전에는, 종교 세계에는 평온이 거의 없을 것이다:

99:4.10 (1090.6) 1. 여러 종교의 (섭리적 신(神)을 믿는) 영적작용적 믿음.

99:4.11 (1090.7) 2. 여러 철학의 인도주의적 그리고 이상주의적 믿음.

99:4.12 (1090.8) 3. 여러 과학의 기계론적 그리고 자연주의적인 개념들.

99:4.13 (1090.9) 조화우주의 실체에 대한 이 세 가지 부분적 접근 방법들은 파라다이스의 삼위일체로부터 나오고 최극자신(神) 안에서 시간-공간 통일을 달성하는 영과 마음과 에너지라는 삼원적 실존을 묘사하는 종교와 철학과 우주론에 대한 계시적 소개를 통하여 결국에는 반드시 조화-협동을 이루게 되어야 한다.

제 5 장. 종교의 사회적인 측면들

99:5.1 (1090.10) 종교가 전적으로 개인적인 영적 체험—하느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인 반면 이 체험의 필연적 결과—사람을 형제로 아는 것—은 자아를 조절하여 다른 자아들에게 맞추게 하며, 그것은 종교적 삶의 사회적 또는 집단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종교는 먼저 내적 또는 개인적 조절이며, 그 다음에는 사회적 봉사 또는 집단적 조절의 문제가 된다. 사람에게 사교성이 있다는 사실은 종교적 집단들이 실존하도록 필연적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종교 집단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는 것은 지능적 지도력에 의해 매우 많이 영향을 받는다. 원시적인

공동체에 있어서 종교적 집단은 경제적 또는 정치적 집단들과 항상 매우 다르지는 않았다. 종교는 항상 도덕을 보존하고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존재였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현대 사회학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의 반대되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이다.

99:5.2 (1091.1)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참된 종교는 하느님을 너희 아버지로 알고 사람을 너희 형제로 아는 것이다. 종교는 형벌을 준다는 위협이나 미래의 신비한 보답을 받는다는 마술 같은 약속들 안에서 믿는 노예근성에서의 믿음이 아니다.

99:5.3 (1091.2) 예수의 종교는 지금까지 인간 종족을 활성화시킨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영향을 준다. 예수는 전통을 무너뜨렸고, 독단론을 파기하였으며, 인류로 하여금 시간과 영원 속에서 가장 높은 이상들을 성취하도록—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되도록—부르셨다.

99:5.4 (1091.3) 종교는 종교 집단이 모든 다른 집단—하늘의 왕국의 영적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관계적-

연합—으로부터 분리되기 전에는 기능할 기회가 거의 없다.

99:5.5 (1091.4) 사람의 온통 타락에 대한 교리는, 종교에 있는, 일으켜 세우는 본성과 그리고 영감을 주는 가치에서 사회적 반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종교의 잠재력의 많은 것을 파괴하였다. 예수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라고 선언했을 때,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다.

99:5.6 (1091.5) 믿는 자들을 영성화 하는 일에 효력이 있는 모든 종교적 믿음은 그러한 종교인의 사회생활 속에 강력한 반향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다. 종교적 체험은 영의 인도를 받는 필사자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영의 열매들”을 틀림없이 맺는다.

99:5.7 (1091.6)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믿음들을 서로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공통적인 목표들을 결국에는 창출하는 어떤 종류의 종교 집단을 만들어 낸다. 종교인들이 언젠가는 함께 뭉치게 될 것이며 심리학적인 견해들과 신학적인 신념들의 토대 위에서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이상들과 목적들이 합일을 이룬 기초

위에서 실재적으로 협동을 이룩하고 함께 공존하게 될 것이다. 신조들보다는 목표들이 종교인들을 통합시켜야만 한다. 참된 종교가 개인적인 영적 체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 개별 종교인은 영적 체험의 실현에 대한 자기 자신의 그리고 개인적인 해석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신앙"이라는 말이, 어떤 필사자들 집단이 하나의 공통적인 종교적 태도로 동의할 수 있는 공식화된 신경(信經)보다는 하느님에 대한 개별존재의 관계를 의미하도록 허용하라. "너희에게 신앙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너희 자신에게 적용하라."

99:5.8 (1091.7) 신앙이 오직 이상적인 가치들에 대한 파악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신앙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선언하는 신약 성서의 정의에 의해 잘 묘사되고 있다.

99:5.9 (1091.8) 원시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들을 말로 표현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의 종교는 생각보다는 춤으로 표출되었다. 현대인들은 여러 신조들을 생각해 내었고 종교적 신앙에 대한 많은 표준들을 만들어 내었다. 미래의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로 살아나아야만 한다, 자신을 사람의 형제신분의 전심어린 봉사⁹⁹에 바쳐야만 한다. 사람이 너무나 개인적이고도 너무나 숭고하여 “말해야 할 너무나 깊이 깔려있는 느낌”으로만 실현되고 표현되어야할 그런 종교적 체험을 가졌다는 것, 그것은 절실한 때이다.

99:5.10 (1091.9) 예수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기적으로 모여서 그들의 공통적인 믿음들을 나타내는 어떤 형태의 말을 외워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셨다. 다만 그는 그들이 서로 모여서 실재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라고—유란시아에서 그의 증여 삶을 기억하는 것으로서 공동으로 함께 저녁을 같이하라—정했¹⁰⁰을 뿐이었다.

99:5.11 (1091.10) 그리스도교인 들이 그리스도를 영적 지도력에서의 최극 이상이라고 제시하면서, 하느님을-의식하고 있는 남녀들에게, 지난 시대에 저마다 자신들의 국가나 민족적 계몽에 기여해왔던 하느님을-아는 사람들의 역사적 지도력을, 감히 거부하라고 요구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는지 모른다.

제 6 장. 제도적인 종교

99:6.1 (1092.1)

분파주의는 제도화된 종교의 질병이며, 독단주의는 영적 본성을 노예화하는 것이다. 종교 없는 교회보다는 교회 없는 종교가 훨씬 더 낫다. 20세기의 종교적 혼란이, 그 자체적으로 그리고 저절로, 영적 퇴폐의 전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혼란은 파멸이 이루어지기 전과 마찬가지로 성장하기 전에 나타나는 것이다.

99:6.2 (1092.2)

종교의 사회화에는 실제적인 목적이 있다. 종교에 대한 충성심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善)을 향한 이끌림을 확대하여 보여주고; 최극 가치의 인력을 자라게 하고; 사심-없는 동료관계에서의 봉사를 강화하고; 가족생활의 잠재성을 찬미하고; 종교 교육을 증진시키고; 지혜로운 조언과 영적 안내를 제공하고; 집단경배를 장려하는 것이 집단적 종교 활동의 목적이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종교는 인간 친구관계를 복돋우고, 도덕을 보존하며, 이웃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그리고 그들 각각에게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본질적 복음이 퍼져 나가도록 조성한다.

99:6.3 (1092.3)

그러나 종교가 제도화될 때에는, 선(善)에 대한 힘이 삭감되는 반면 악에 대한 가능성은 엄청나게

증대된다. 형태화 된 종교의 위험성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신앙의 고정과 정서의 결정화; 세속화에 따른 기존의 호기심들의 누적; 진리를 규격화시키고 고정화시키려는 경향; 하느님께 대한 예배봉사로부터 교회의 예배봉사로 바꾸려는 종교적 전환; 사명활동자보다는 관리행정자가 되려는 영도자들의 성향; 파벌을 조성하고 경쟁적인 분파들을 만드는 경향; 압제적인 성직자 권한의 제정; 배타적인 "선택된-민족"의 태도의 창조; 성스러움에 대한 잘못되고 과장된 관념의 조장; 종교의 격식화와 경배의 고착화; 현재의 요구들을 무시하면서 과거를 숭배하려는 경향; 종교에 대한 최신의 해석에서의 실패; 세속적인 제도들의 기능상의 혼란; 그것은 종교적인 특권계급들이라는 악한 차별 제도를 만들며; 관행에 따른 편협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모험적인 젊은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영원한 구원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점차 잃어간다.

99:6.4 (1092.4) 형식에 사로잡힌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왕국 건축자들로써 고상한 봉사를 하도록 풀어주는 대신에 그들의 개인적인 영적 활동들 속에 제한시킨다.

제 7 장. 종교의 공헌

99:7.1 (1092.5) 교회를 비롯하여 다른 모든 종교 집단들은 모든 세속적 활동들로부터 초연해야만 하며, 동시에 종교는 인간적 제도들의 사회적 조화-협동 체제를 방해하거나 저지시키는 어떤 일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삶은 의미 넘치는 것으로 계속 성장해야만 한다; 사람은 반드시 종교에서의 스스로의 정화와 철학에서의 스스로의 교정과 함께 계속 나아가야만 한다..

99:7.2 (1092.6) 정치학은 반드시 종교적 생활에 의해 공급되는 통찰력과 동기들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학으로부터 배운 기법을 가지고 경제와 산업의 재구성에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 모든 사회적 재구성에서, 종교는 초월적 목적에 대한 안정된 충성심, 즉각적이고 현세적인 목적들을 넘어서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확고한 목표를 제공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오는 혼란의 한 가운데에서, 필사 사람은 멀리-미치는 조화우주 전망의 식량이 필요하다.

99:7.3 (1093.1) 종교는 사람에게 땅을 마주하는 그 위에서 용기 있게 그리고 기쁨 넘치게 살아가도록 영감을 준다; 그것은 인내가 열정과, 열성에 통찰력이, 동정심이 힘과, 그리고 이상이 에너지와 서로 합치게 한다.

99:7.4 (1093.2) 사람은 만일 자신이 하느님의 주권적 현존 앞에서 명상하고 신성한 의미들과 영적인 가치들의 실체들을 헤아리지 않는 한, 결코 현세적인 문제들을 현명하게 결정하거나 개인적 이익에서의 이기심을 초월할 수 없다.

99:7.5 (1093.3) 경제적인 상호 의존과 사회적인 형제우애관계는 결국 형제신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몽상가이다, 그러나 과학이 그를 정신차리게 만듦으로써 그로서 광신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위험을 멀리 줄어들게 하면서 종교가 그를 당장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적 필요성이 사람을 실체와 묶어놓고, 개인의 종교적 체험이 바로 그 사람을 언제까지나 확대되고 진보하는 조화우주 시민 관계의 영원한 실체들과 얼굴을 마주하도록 데려온다.

99:7.6 (1093.4)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100 편 인간 체험 속의 종교

100:0.1 (1094.1) 역동적인 종교 생활의 체험은 평범한 개별존재를 이상적인 힘을 가진 개인성으로 변환시킨다. 종교는 각 개인의 진보를 조성함으로써 전체의 진보를 충족시키며, 각 개별존재의 진보는 전체의 성취를 통하여 증강된다.

100:0.2 (1094.2) 영적인 성장은 다른 종교인들과의 긴밀한 관계적-연합에 의하여 서로 자극을 받는다. 사랑은 종교적 성장—주관적인 충족 대신 객관적인 매력—에 토양을 제공하며 더욱이 그것은 최극의 주관적 만족을 가져온다. 그리고 종교는 일상적인 생활의 진부한 고역을 고상하게 만든다.

제 1 장. 종교적 성장

100:1.1 (1094.3) 종교가 의미들의 성장과 가치들의 증진을 가져오지만 한편으로, 전적으로 개인적인 평가들이 절대차원으로 들어 오를 때는 반드시 악(惡)이 귀결된다. 어린이는 즐거움의 내용에 따라서 체험을 평가한다; 성숙은 개인적인 즐거움을 보다 높은 의미들로 치환된 양(量), 여러 가지 생활환경과 조화우주적 관계들의 가장 높은 개념들에 대한 충성심에 비례한다.

100:1.2 (1094.4)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성장하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고착되는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다. 의미들의 성장을 위한 준비가 서로 다른 시대들에, 계속되는 문화들 속에서, 그리고 발전하는 문명의 발생

단계들 속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편견과 무지가 성장을 억제하는 주된 것들이다.

100:1.3 (1094.5) 발달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에게 그 자신만의 종교적 체험이 성장할 기회를 주어라; 이미-만들어진 어른의 체험을 그에게 기세로서 밀어붙이지 말라. 이미 확립되어있는 교육 체제를 통하여 두루, 한해 한해 진보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지적 진보를 뜻하지 않음을, 영적 성장은 더더욱 아주 적다는 것을 기억하라. 어휘의 확대가 성격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장은 단순한 산출 결과에 의해서 진실로 가리켜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보에 의해서 표시된다. 실제 교육적 성장은 이상의 향상, 가치의 증가된 깊은 이해, 가치의 새로운 의미 그리고 최극 가치에 대한 증강된 충성에 의해서 가리켜진다.

100:1.4 (1094.6) 어린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어른 연관-동료들의 충성심에 의해서만 영구적으로 감명을 받는다; 교훈이나 본보기조차도 계속 이어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충성스런 개인들은 성장하는 개인들이다; 성장은 감명을 주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실체이다. 오늘을 충성으로

살라—성장하라—그러면 내일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이다. 올챙이가 개구리로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매 순간마다 올챙이로서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다.

100:1.5 (1094.7) 종교적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토양은 자아-실현의 진보적인 일생, 자연적 성향의 조화-협동, 호기심의 발동과 타당한 모험의 즐길, 만족함의 느낌의 체험, 주목하기와 알아차림에의 두려워하는 자극의 기능작용, 경이로움의-매혹, 그리고 작고 빈약함의 정상적 의식, 즉 겸손, 이 모든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성장은 자아-비판으로 완수되는 자아신분의 발견—곧 양심에 근거를 두는데, 이는 양심은 실제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치-습관들, 곧 개인적 이상들에 의한 자기자아에의 비판이기 때문이다.

100:1.6 (1095.1) 종교적인 체험은 육체적인 건강과 타고난 기질 그리고 사회 환경에 의해 현저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현세적 조건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바쳐진 혼에 의해 이루어지는 내면의 영적 진보를 막지 않는다. 정상적인 모든 필사자들 속에는 만일 그들이 특별히 억압하지만 않으면 기능을 발휘하는

성장과 자아-실현에 대한 어떤 타고난 본능적 욕구들이 존재한다. 영적인 성장의 잠재를 갖는 이 구조적 자질을 육성하는 확실한 기법은 최극 가치들에 대해 전심으로 헌신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100:1.7 (1095.2) 종교는 증여되거나, 받아들이거나, 빌리거나, 배워지거나, 또는 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가치들을 향하여 자라가는 탐구에 비례하여 성장하는 개인적 체험이다. 그래서 우주적 성장은 의미들의 누적과 가치들의 계속 확대되는 상승의 결과로 수반된다. 그러나 숭고함 그 자체는 항상 무의식적인 성장이다.

100:1.8 (1095.3) 사고(思考)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에서의 종교적 습관들은 영적 성장의 섭리에 기여한다. 사람은 영적 자극, 곧 일종의 조건에 따른 영적 반영에 호의적인 반응을 하는 쪽으로 종교적 성향을 개발할 수 있다. 종교적 성장을 도와주는 습관들에는 신성한 가치들에 대한 세련된 감수성,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인 삶 인식, 조화우주 의미들에 대한 깊은 명상, 경건한 문제 해결, 자신의 영적 삶을 다른 동료들과 나눔, 이기심의 극복, 신성한 자비를

부정적으로 이용하지 않음, 하느님의 현존에 있는 것처럼 살기 등이 있다. 종교적 성장의 요소들은 계획적일 수 있지만 성장 그 자체는 반드시 무의식적이다.

100:1.9 (1095.4) 그렇지만, 종교적 성장에서의 무의식적인 본성은, 어찌되었건, 그것이 인간 지능의 무의식적 영역이라고 가정되는 곳에서, 기능하는 활동이라고 신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필사자 마음의 초(超)의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활동들을 신호한다. 무의식적인 종교적 성장에서의 실체의 실현에 대한 체험은, 초월의식의 기능적 실존에 대한 하나의 명확한 증거이다.

제 2 장. 영적 성장

100:2.1 (1095.5) 영적인 발전은, 첫째로, 참된 영적 기세와 살아있는 영적 관계를 유지함에 있으며, 두 번째는, 영적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것이다; 자신의 동료에게 자신의 영적 은인으로부터 받아들였던 것을 사명활동으로 결실을 거두어가는 것이다. 영적인 진보는 완전함에- 굶주림의 자아-의식, 하느님을 알고 그리고 그와 같이 되려는 욕망,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전심전력의 목적과 짝을 이루고 있는, 영적 빈곤의 지능적 인지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

100:2.2 (1095.6) 영적 성장은 먼저 필요에 대한 각성이며, 다음에는 의미들에 대한 인식이고, 그 다음에는 가치들의 발견이다. 참된 영적 발전의 증거는 사랑에 의해 출발되고, 사심-없는 사명활동에 의해 활성화되며, 신성(神性)의 완전 이상들에 대한 전심으로의 경배에 의하여 지배되는 개인성의 표현 속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 체험은 단순히 신학적인 믿음과는 대조적으로 종교의 실체를 구성한다.

100:2.3 (1095.7) 종교는 그것이 우주에 대하여 영적으로 반응하는, 깨우치고 그리고 현명한 기법이 되는 체험의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 영화롭게 된 그러한 종교는 인간 개인성의 3가지 차원 즉: 지적 차원, 모론시아적 차원, 영적 차원; 마음 위에, 진화하는 혼속에, 내주하는 영과 함께 기능할 수 있다.

100:2.4 (1096.1) 영성(靈性)은 사람이 하느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그리고 동료 존재에게는 한 존재로서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를 한번에 즉시 가늠하는 지도계이자

척도가 된다. 영성은 사물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의미에서 진리를 깨닫고 가치에서 선을 발견하는 능력을
강화시킨다. 영적 발달은 영성을 담을 수용력으로
결정되며 또한 사랑에서 이기적 본질특성을 얼마나 제거
하느냐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100:2.5 (1096.2) 실재적인 영적 지위는 신(神) 달성, 조절자가
동조된 정도와 같다. 영성(靈性)의 최종 성취는 실체의
최고점 달성, 하느님과-같음을-이룸의 최고점과 일치한다.
영원한 삶은 무한한 가치들에 대한 끝없는 추구이다.

100:2.6 (1096.3) 인간 자아-실현의 목표는 물질적이 아니라
영적이어야만 한다. 분투할만한 가치를 갖는 유일한
실체들은 신성하고 영적이며 영원한 것들이다. 필사
사람은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인간 애정에서의
만족을 누릴 권리가 있다; 또한 인간 관계적-연합들과
그리고 현세적 제도에 충성함으로써 은혜를 누린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극복하며
신성한 완전성과 최종자의 봉사에 대한 영원한 운명을
성취해야만 하는 불멸의 개인성을 세울, 영원한 기초가
아니다.

100:2.7 (1096.4) 예수는 하느님을 아는 필사자의 깊은 확실성을 묘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느님을 알고 왕국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진들 그것이 무슨 대수로운 일이 되겠느냐?” 현세적인 안전은 무너지기 쉽지만, 영적인 확실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인간적인 역경과 이기심과 사악함과 증오와 원한과 시기심의 밑물이 필사자의 혼을 휩쓸 때, 너희는 하나의 내적인 요새, 절대적으로 무너질 수 없는 영의 성채가 존재한다는 확신 속으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 이것은 적어도 내주하고 있는 영원하신 하느님의 영에게 자신의 혼을 맡기는 것에 전념해 온 모든 인간 존재들에게 진실이다.

100:2.8 (1096.5) 그러한 영적인 달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점차적인 성장 또는 특이한 분기점에 의해 야기되더라도, 개인성의 새로운 적응은 물론 가치들에 대한 새로운 기준들의 발달이 발생한다. 영으로-태어난 그러한 개별존재들은 삶에 다시 확실한 동기를 부여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열정들이 사라지고 가장 열망하는 희망이 무너지는 속에서도 태연하게 기다릴 수 있다; 그들은 그러한 큰 재앙들이 다만 새롭게 방향을 정해주는

대변혁이며. 그것은 우주적 달성에서의 새롭고도 더욱 웅대한 차원의 실체들로 이루어진 더욱 고귀한 그리고 참을성으로 견디어내는 뒤편에게, 준비단계로서 자신들의 현세적 창조계를 파괴하는 그러한 대 변혁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안다.

제 3 장. 최극 가치의 개념들

100:3.1 (1096.6) 종교는 정적(靜的)이고 행복한 마음의 평화 달성을 위한 기법이 아니며; 동적(動的)인 봉사를 위해 혼을 편성하는 추진력이다. 그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돌보는 충성된 봉사 속에 자아신분의 전체성을 등록하는 것이다. 종교는 최극의 목표 달성, 영원한 보상에 필수 불가결한 모든 값을 지불한다. 최고로 숭고한 종교적 충성심 속에 신성시된 완성됨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충성심들은 사회적으로 효력이 있고 영적으로 진보적이다.

100:3.2 (1096.7) 종교인에게 있어서 하느님이라는 말은 최극 실체를 향한 접근과 신성한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 된다. 인간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선과 악을 결정하지 않는다; 도덕적

가치들은 소망의 달성이나 감정적 좌절감으로부터 발생되지 않는다.

100:3.3 (1096.8) 가치에 대해 깊은 사색에 잠길 때, 너희는 가치인 것과 가치를 갖는 것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만 한다. 너희는 유쾌한 활동들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인간 체험의 언제까지나 더욱 높고 높게 진보되는 차원 위에서의 의미깊은 집대성활동과 증진된 실현들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여야만 한다.

100:3.4 (1097.1) 의미는 체험이 가치에 덧붙이는 어떤 것이다; 가치를 올바르게 깊이 아는 의식이다. 고립되고 순전히 이기적인 즐거움은 의미에 대한 실질적 평가절하, 상대적인 악(惡)에 가까운 무의미한 향락을 암시할 수도 있다. 가치는 실체가 의미 있고 정신적으로 연관될 때, 그러한 관계들이 마음에 의해 감지되고 통찰될 때 체험적인 것이 된다.

100:3.5 (1097.2) 가치는 결코 정적(靜的)인 것이 될 수 없다; 실체는 변화, 성장을 뜻하는 것이다. 성장, 의미의 확장 그리고 가치의 고양에 없는 그러한 변화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잠재적인 악이다. 조화우주에 적응하는 본질특성이

더욱 위대할수록, 그 어떤 체험도 더욱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가치는 개념적인 환상이 아니다; 그것들은 실제이며, 한편 항상 관계들에서의 사실에 의존한다. 가치는 항상 실재적이며 동시에 잠재적이다—예전의 어떤 무엇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무엇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무엇이다.

100:3.6 (1097.3) 실재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의 관계적-연합은 성장, 가치에 대한 체험적 깨달음과 동일하다. 그러나 성장은 단순한 진보가 아니다. 진보는 반드시 의미를 갖지만, 성장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무가치하다. 인간 삶의 최극 가치는, 가치의 성장과 의미의 진보 그리고 이 두 체험의 조화우주 상호-관련의 실현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은 하느님-인식에 상응한다. 그러한 필사자는 초자연적 존재는 아니지만, 정말로 초인간으로 되어가조 있는 것이다; 불멸의 혼(魂)이 진화하고 있다.

100:3.7 (1097.4) 사람이 성장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순조로운 조건을 제공할 수는 있다. 성장은 육체적, 지적 또는 영적에 상관없이 반드시 무의식적이다. 사랑은 그렇게 성장한다; 그것은 창조되거나 만들어지거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라나야만 한다. 진화는 성장의 조화우주 기법이다. 사회적인 성장은 법으로 보장될 수 없으며, 도덕적인 성장은 진보된 관리-행정으로 얻을 수 없다. 사람이 기계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의 실제적인 가치는 반드시 인간의 문화와 개인적 깊은 이해에서 유래되어야만 한다. 성장에 대해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개인성의 모든 전체 힘을 동원하는 것—살아있는 신앙—이다.

제 4 장. 성장의 문제들

^{100:4.1 (1097.5)} 종교적인 삶은 헌신적인 삶이며, 헌신적인 삶은 창조적인 삶, 기원적이고 자발적인 것이다. 새로운 종교적 통찰력은 옛날의 열등한 반응 원형틀들 대신에 새롭고도 더 나은 반응 습관들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갈등들로부터 발생한다. 새로운 의미들은 오직 갈등 속에서만 일어나며; 갈등은 오직 우월한 의미들 속에 내포된 더 높은 가치들을 지지하기를 거부하는 현상에 직면하여서만 존속된다.

^{100:4.2 (1097.6)} 종교적인 혼란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심리적인 갈등과 영적인 동요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 삶에 대한 철학적 기준의 체제는 마음의 철학적 영역 속에 상당한

소란을 가져온다. 갈등이 없이는 위대한 자와 선한 자와 진실한 자 그리고 고결한 자를 위한 충성심이 발휘될 수 없다. 영적 선견지명의 정화(淨化)와 조화우주 통찰력의 증진에는 노력이 뒤따른다. 그리고 인간 지성은 현세적 실존이 갖는 비(非)영적 에너지들에 의해 생존되는 상태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막아준다. 나태한 동물적 마음은 조화우주 문제 해결과 싸우는데 요구되는 노력에 반발한다.

100:4.3 (1097.7) 그러나 개인성이 가진 혼의 힘을 사랑, 건강, 정신적 효과 그리고 행복에서의 통치에 따라 통합해보려는 과업에 있는 그 종교적 삶에서의 가장 큰 과제는, 물리적 체계, 마음 체계 그리고 영의 체계의 통일이라는 것에서 생겨난다. 사람은 몸의 건강과 정신의 온전함은 많이 납득하지만, 그러나 행복에 대해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거의 없다. 최고의 행복은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영적 진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영적 성장은 영구적인 즐거움, 모든 납득을 거치는 평화를 낳는다.

100:4.4 (1098.1) 육체적인 삶 속에서는 감각이 물체들의 실존들을 밝혀주며; 마음은 의미들에 대한 실체를 발견하지만; 영적인 체험은 개별존재들에게 알생에 대한 참된 가치들을 계시해 준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높은 차원들은 하느님의 최극의 사랑 속에서 그리고 사람의 사심-없는 사랑 속에서 성취된다. 만약에 너희가 너희 연관-동료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가치들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높은 가치를 두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것이다. 너희는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너희 관계적-연합들 속에서 가치들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를 짜증나게 한다면, 화나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면, 너는 그의 관점, 그러한 불유쾌한 행위를 일으키게 한 그에게 있는 이유들을 식별하기 위하여 동정심을 가지고 노력해야만 한다. 만일 너희가 일단 너희 이웃을 납득하게 되면, 너희는 관대해 질 것이며, 이 관대함이 우정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사랑으로 익어갈 것이다.

100:4.5 (1098.2) 동굴 속에 살던 시대의 원시적인 너희 조상들 중의 하나에 대한 모습—키가 작고, 보기 흉하며,

불결하고, 으르렁거리는 사람 괴물이 선 채로 막대기를 들어 올리고 정면을 사납게 쳐다보면서 증오심과 악의에 가득 차 숨을 몰아쉬는—을 마음의 눈으로 상상해 보라. 그러한 모양은 인간의 신성한 존엄성을 거의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그림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란다. 살아있는 이 인간 앞에 송곳니가 날카롭게 나있는 호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다. 그 사람 뒤에는 한 여인과 두 아이들이 있다. 너희는 그러한 모습이 인간 종족 속에 있는 훌륭하고 고귀한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임을 곧 알게 되겠지만, 그 사람은 두 가지 그림 속에서 똑같은 주인공이다. 오직 두 번째 그림에서만 너희는 넓혀진 시야에 호감을 갖게 된다. 그 속에서 너희는 진화하는 필사자의 동기유발을 식별하게 된다. 그의 태도는 너희가 그를 납득하기 때문에 칭찬 받을 만한 것으로 바뀐다. 만일 너희가 너희 친구들의 동기들을 추측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얼마나 그들을 더 잘 납득할 수 있겠는가. 만일 너희가 너희 연관-동료들을 알 수만 있다면, 너희는 결국에는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100:4.6 (1098.3) 너희는 단순한 의지에서의 행동으로는 너희 동료들을 참되게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은 너희 이웃의

동기와 정서를 속속들이 납득함으로써만 태어난다. 너희가 오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매일 인간 존재 또 한 사람을 사랑하도록 배우는 것이다. 너희가 매일 또는 매주마다 너희 동료들 중에 한 사람씩을 더 납득하게 된다면, 그리고 만일 이것이 너희 능력의 한계를 다한 것이라면, 너희는 너희 개인성을 확실하게 사회화 하고 있는 것이며 참되게 영성화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은 전염되는 것이며, 인간의 헌신이 총명하고 지혜로울 때에는, 사랑이 미움보다 더욱 잘 전염된다. 그러나 오직 진정한 그리고 사심-없는 사랑만이 참으로 전염을 일으키는 것이다. 만약에 각 필사자가 역동적 애정의 초점이 될 수만 있다면, 사랑의 이 고마운 바이러스는 인류애의 정서적인 감정-흐름에 곧 바로 스며들어가, 모든 문명이 사랑으로 감싸이게 되기까지, 그리고 사람의 형제신분의 실현이 되기까지 이처럼 확장될 것이다.

제 5 장. 전향과 신비주의

100:5.1 (1098.4) 세상은 길을 잃은 혼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은 신학적인 감각에 있어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방향적 의미에 있어서 길을 잃었고, 좌절감을 느끼는 철학 시대의

이론들과 예배종파들 속에서 혼돈하여 방황하고 있다. 종교적 권한 대신에 하나의 삶의 철학을 세우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 너무 적다. (사회화된 종교의 상징들도 성장의 경로들로서 무시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독은 강이 아니다.)

100:5.2 (1098.5) 종교적 성장의 진보는 침체로부터 갈등을 거쳐 조화-협동으로, 불확실성으로부터 확신하는 신앙으로, 혼돈 된 조화우주 의식으로부터 개인성의 통일로, 현세에서의 목적으로부터 영원한 것으로, 두려움의 속박으로부터 신성한 아들관계의 해방으로 이끈다.

100:5.3 (1099.1) 최극의 이상들에 대한 충성심의 고백—하느님-의식을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음—이 자연스럽고 점진적인 성장이 될 수 있거나 또는 어떤 위기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시점에서 때때로 체험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그 사건 많은 날에 바로 그러한 갑작스럽고도 장엄한 회심을 체험하였다. 고타마 싯다르타는 그가 홀로 앉아 최종 진리에 대한 신비를 꿰뚫어보고자 하던 그 밤에 비슷한 체험을 하였다. 많은

다른 사람들도 유사한 체험들을 하였으며, 갑작스러운 회심 없이 영적인 진보를 이룩한 참된 신자들도 많이 있었다.

100:5.4 (1099.2) 소위 종교적인 회심이라 불리는 것들과 연관된 극적인 현상들 대부분은 본성에서는 전적으로 심리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근원이 영적인 그러한 체험들이 분명히 일어난다. 심적 동원이, 영 달성을 향한 정신적 발돋움의 어떤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되었을 때는, 신성한 관념에 대한 충성에서 인간 동기의 완전함이 존재하고 있을 때는, 내주하는 영이, 믿고 있는 필사자의 초(超)의식적 마음의 집중되고 성화되어 있는 목적에 동조하기 위하여, 갑자기 내려와-잡아채는 일이 매우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종교적 회심은, 것처럼 지적이면서 영적 현상이 통합되는 그러한 체험이라서, 순수하게 심리적인 개입 위에서, 그리고 그것을 뛰어 넘는 요소들로서 구성되어 있다.

100:5.5 (1099.3) 그러나 감정 자체만으로는 잘못된 회심이다; 느낌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한 심리적 동기가 부분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러한 인간적-

충성심의 동기가 미완성(未完成)인 한, 회심의 체험은 그 정도에서 지적이고 감정적이며 영적인 실체가 혼합된 상태가 될 수 있다.

100:5.6 (1099.4)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의 이론적 잠재의식 마음을 통합된 다른 지적 삶 속에 있는 실천적으로 작용하는 전제로 이해할 마음이 있다면, 그는 초의식적 차원처럼 상승하는 지적 활동의 비슷하고 상응하는 영역, 내주 하는 영적 실존개체인 생각 조절자와 즉각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영역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러한 모든 심리적 고찰 속에 있는 큰 위험성은 색다른 꿈들을 포함하여 환상들과 소위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인간 마음을 향한 신성한 교통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신성한 존재들이 하느님을 아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나타내어 온 것은, 그들의 신비로운 황홀경이나 병적인 환상들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현상들을 무시한 상태에서였다.

100:5.7 (1099.5) 전환을-추구하는 것과 대조해서, 생각 조절자와의 접촉이 가능할, 모론시아 지대에 더욱 잘 접근하는 길은 살아있는 신앙과 진지한 경배, 전심을

다하고 그리고 사심-없는 기도를 통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요컨대 인간 마음의 무의식적 차원에서 기억들이
용솟음쳐 오르는 것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이, 신성한
계시와 영이 인도하는 것으로 잘못 다루어져 왔다.

100:5.8 (1099.6) 종교적 백일몽의 습관적인 실천 관행과 연관되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신비주의는 하나의 실제
기피의 기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때로
참된 영적 교제의 수단이 되어 왔다. 바쁜 삶의
현장으로부터 짧은 시기동안 물러나 있는 것이 심각하게
위험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개인성의 장기간의 고립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망상적
의식에서의 황홀경과 같은 상태가 종교적인 체험으로
장려되어서는 안 된다.

100:5.9 (1099.7) 신비적인 상태의 특징은, 비교적 수동적
지능위에서 작용하는, 주의가 집중된 상태에서의 생생한
섬과 함께 하는 의식의 확산이다. 이 모든 것은 영적 접촉의
지대, 즉 초의식의 방향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잠재의식을 향하여 의식을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게 하는

것이다. 많은 신비주의자들은 자신의 정신적 분리작용을 비정상적인 정신적 현시활동의 차원까지 옮겨왔다.

100:5.10 (1100.1) 영적인 명상의 보다 더 건전한 태도는 사려 깊은 경배와 감사기도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육체 속에 있었던 예수의 일생 중에서 후기에 발생하였던 것과 같은, 자기 생각 조절자와의 직접적인 교제는 소위 신비적 체험이라고 불리는 것들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신비적인 교제의 개시에 기여하는 요소들은 그러한 심리 상태들의 위험성을 암시한다. 신비상태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해 촉진된다: 그것은 육체적 피로, 금식, 심리적 분열, 깊은 심미적 체험, 생생한 성적 충동, 두려움, 불안, 분노, 격렬한 춤이다. 그러한 예비행사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물질적 것의 대부분은 잠재의식 마음에서 그 기원을 가지고 있다.

100:5.11 (1100.2) 그 조건들이 신비적 현상들에게 아무리 호의적이더라도, 나사렛 예수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하여 그러한 방법에 의존하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납득해야만 한다. 예수는 잠재의식적 망상 또는 초(超)의식적 환상을 이용하지 않으셨다.

제 6 장. 종교적인 삶의 징후들

100:6.1 (1100.3) 진화 종교와 계시 종교는 방법상에서 분명하게 다른 반면, 동기에 있어서는 매우 비슷하다. 종교는 삶에 있어서 하나의 명확한 기능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삶의 방식이다. 참된 종교는 그 종교인이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최극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실체에게 전심으로 제공하는 헌신이다. 그리고 모든 종교들의 뚜렷한 특징은: 최극 가치들에 대한 의심하지 않는 충성심과 전심으로의 헌신이다. 최극 가치에 대한 이 종교적 헌신은 종교심이 없다고 생각되는 어머니의 자기 자식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에서 그리고 비종교인이 지지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이는 열렬한 충성심 속에 나타난다.

100:6.2 (1100.4) 그 종교인이 용납한 최극의 가치는 열등한 것일 수 있고 또는 심지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종교적이다. 종교는 최극의 것으로 유지되는 그 가치가 정말로 참된 영적 가치를 갖는 조화우주 실체가 되는 바로 그 한도 내에서 참되다.

100:6.3 (1100.5) 종교적인 충동에 대한 인간 반응의 표시들에는 숭고함과 웅장함의 본질특성들이 있다. 진지한 종교인은 우주의 시민 됨을 의식하며 초인간적 힘의 근원들과 접촉하는 것을 인식한다. 그는 하느님의 아들들의 우월한 고상한 친교에 소속된다는 확신으로 감격하고 격려를 받는다. 자아-가치에 대한 의식은 가장 높은 우주적 목표들—최극의 목표들—을 향한 탐색의 충동에 의해서 증강된다.

100:6.4 (1100.6) 자아는 높아지는 자아-단련을 강요하고 감정적 갈등을 줄이게 하는, 그리고 필사자 삶을 정말로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모든 것을-포용하는 동기의 흥미를 일으키는 충동에 몸을 맡기어 왔다. 인간적 한계들에 대한 과민한 인식은, 가장 높은 우주적 그리고 초우주적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도덕적인 결정과 영적인 열망에 연관되어서, 필사자의 결점들에 대한 자연 본성적 의식으로 바뀐다. 그리고 초인간적 이상들의 달성에 대한 열정적인 이 분투는 항상 증가하는 인내와 자제심과 깨끗함 그리고 관대함으로 특징 지워진다.

100:6.5 (1100.7) 그러나 참된 종교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이며, 봉사하는 일생이다. 순전히 일시적이고 사소한 많은 것에서 벗어나는 종교인의 초연함은 결코 사회적 고립으로 이끌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유머 감각을 파괴해서도 안 된다. 진정한 종교는 인간 실존으로부터 아무 것도 빼앗지 않고, 오히려 삶의 모든 것에 새로운 의미들을 더해 준다; 새로운 유형의 열정, 열의 그리고 용기를 발생시킨다. 그것이 십자군 전사의 영까지 불러 일으킬 수 있지만, 만일 영적 통찰력에 의해서 그리고 인간 충성심에서의 평범한 사회적 책무에 대한 충실한 헌신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험한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이다.

100:6.6 (1101.1) 종교적인 삶의 가장 놀랄만한 특징들 중의 하나는 역동적이고 장엄한 평화인데, 그 평화는 모든 인간들을 납득시키는, 모든 의심과 혼란의 부재(不在)를 나타내는 조화우주 평형이다. 그러한 영적 안정성의 차원들은 실망의 원인을 제거해 준다. 그러한 종교인들은,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에 있는 것도 장차 도래할 것도 높음도 깊음도 그밖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음을 나는 확신한다.”고 말한 사도 바울과 같다.

100:6.7 (1101.2) 최극자의 실체를 파악하는 그리고 궁극자의 목표를 추구하는, 종교인의 의식 속에 내재하는, 승리를 거두는 영광의 실현과 연관된, 어떤 안전감에 대한 느낌이 있다.

100:6.8 (1101.3) 심지어 진화 종교도 충성심과 장대함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해당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체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시 종교는 참될 뿐만 아니라 지극히 훌륭하다. 증대된 영적 선견지명에 대한 새로운 충성심은 새로운 차원의 사랑과 헌신, 봉사와 교제를 창출한다; 사회적인 전망을 증진시킨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람의 형제신분에 대한 의식을 확대시킨다.

100:6.9 (1101.4) 진화된 종교와 계시된 종교 사이의 특징적인 차이는, 순전히 체험적인 인간적 지혜에 덧붙여진 신성한 지혜의 새로운 본질특성이다. 그러나 신성한 지혜와 우주적인 통찰력의 증가되는 증여를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간적인 종교들 속에서 갖는 체험과 그 종교들을 체험하는 것이다.

제 7 장. 종교적인 삶의 절정

100:7.1 (1101.5) 유란시아에 있는 보통 수준의 필사자들이, 나사렛 예수가 육체 속에 머무른 동안 달성하셨던 성격의 높은 이상에 다다르게 되기를 바랄 수는 없지만, 예수의 개인성의 완전해진 계통들을 따라서 하나의 강력하고 통일된 개인성을 개발하는 것은 모든 필사자 신자들에게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주(主)의 개인성의 독특한 모습은 그것의 완전성보다는 오히려 그 균형, 그 섬세함 그리고 지극하고 치우치지 않은 통일성이었다. 예수에 대한 가장 감동적인 소개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고소하는 자들 앞에 서 계신 주(主)를 향하여 손짓하며 "이 사람을 보라!"고 말하였던 본보기에서 볼 수 있다.

100:7.2 (1101.6) 예수의 어김없는 친절이 필사자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었지만, 그의 건장하고 힘찬 성격은 그의 추종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는 참으로 성실하였다; 그 어떤 아무런 위선도 그에게는 전혀 없었다. 그는 허식이 없었다; 항상 매우 신실하게 진심이었다. 그는 결코

걸치레로 자신을 낮춘 적이 없었으며, 가식을 부리는 것에 안주한 적이 결코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진리로 사셨다. 그는 진리 그 자체였다. 그는 당대의 사람만을 구원하는 진리를 선포하도록 강요되었었고, 그에 대한 진지함이 때때로 고통의 원인이 되었지만 그렇게 하였다. 그는 의심하지 않고 모든 진리에 충성을 바쳤다.

100:7.3 (1101.7) 그러나 주(主)는 너무나 이성적이었고, 너무나 가까이하할 수 있는 분이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들이 것처럼 성스럽게된 상식으로 특징을 지니게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모든 사명활동에서 너무나도 실천적이였다. 그는 기형적이고 변덕스럽고 괴벽스러운 모든 경향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셨다. 그는 변덕스럽거나 별나거나 이성을 잃는 경우가 한 번도 없으셨다. 그의 모든 가르침 속에 그리고 그가 행한 모든 것들 속에는 항상 정교한 분별이 있었으며 그것은 예의를 갖춘 비범한 감각이 따르고 있었다.

100:7.4 (1102.1) 그 사람의 아들은 항상 매우 침착한 개인성을 유지하셨다. 심지어는 그의 적들도 그에게 건전한 존중을

나타냈다; 그들은 그의 현존을 두려워하기까지 하였다. 예수는 신성한 열심히 넘치게 채워져 계셨지만, 광신적으로 된 적이 결코 없었다. 그는 감성적으로 활발하셨지만 경솔한 적이 결코 없었다. 그는 상상력이 풍부하셨지만 항상 실천적이셨다. 그는 삶의 실체들과 솔직하게 마주하셨으나, 흥미 없거나 둔감하신 적이 결코 없었다. 그는 용감하셨지만 무모하시지 않았다; 세심하시면서도 결코 심약하지 않으셨다. 그는 동정심이 깊으셨지만 정서에 빠지지 않으셨으며; 독특하셨지만 괴상하지는 않으셨다. 그는 경건하셨지만 경건한 척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는 매우 침착하셨는데 이는 그는 너무나도 완전하게 통합되었기 때문이었다.

100:7.5 (1102.2) 예수의 기원성은 억압받지 않았다. 그는 전통에 묶이거나 제한된 인습에 젖음으로써 방해를 받는 일이 없으셨다. 그는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하였으며 절대적 권한으로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의 장엄한 기원성은 그로 하여금 그보다 전에 그리고 동시대에 있던 사람들의 가르침 속에 있는 진리의 보석들을 경시하도록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들 중에서 가장

기원적인 것은 두려움과 희생 제물 대신에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신 것이었다.

100:7.6 (1102.3) 예수는 매우 넓은 견해를 갖고 계셨다. 그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간곡히 타이르셨다. 그에게는 편협함이 없었다. 그의 동정적인 가슴은 모든 인류 그리고 우주까지라도 포용하였다. 그의 초청의 말씀은 항상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내게로 오라”는 것이었다.

100:7.7 (1102.4) 예수께 있어서는 “그가 하느님을 신뢰하셨다”는 것이 정말로 맞는 말이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장 탁월하게 신뢰하셨다. 그는 어린아이가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신뢰하듯이 자신의 아버지를 신뢰하셨다. 그의 신앙은 완전하였지만 무례한 적이 결코 없었다. 잔인한 자연본성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또는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복지에 관계가 없을지라도, 예수는 자신의 신앙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었다. 그는 실망을 당할 염려가 없었으며 박해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 그는 외견상의 실패에 의해서 흔들리는 법이 없으셨다.

100:7.8 (1102.5) 그는 사람들을 형제로서 사랑하셨으며, 동시에 그들이 타고난 자질과 후천적인 본질특성에서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셨다. “그는 부지런히 선(善)을 행하셨다.”

100:7.9 (1102.6) 예수는 유별나게 쾌활한 사람이셨지만, 맹목적이고 불합리한 낙관주의자는 아니셨다. 그가 늘 훈계하신 말씀은 “명랑한 기분을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그가 이러한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사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을 항상 측은한 심정으로 이해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믿으셨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행함에 대한 자신의 헌신에 있어서 숭고하게 확고하였고 자신의 신념에 대하여 항상 진실하셨다.

100:7.10 (1102.7) 주(主)는 언제나 관대하셨다. 그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욱 축복이 있다”고 말하시는 데에 결코 지치지 않았다. 그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나 거저 주어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한, 그의 한없이 관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낭비적이거나 지나치신 적이 없었다. 그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지 않으면 안된다고 가르치셨다.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들일 것이다.”

^{100:7.11 (1102.8)} 그는 솔직하면서도 항상 친절하셨다. 그는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숨김이 없었지만, 항상 친근하셨다. 그는 죄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죄에 대한 자신의 증오를 거리낌 없이 선언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솔직함 전체에 있어서 그는 틀림없이 공정하셨다.

^{100:7.12 (1102.9)} 예수는 가끔 인간적인 슬픔의 잔을 깊이 들이마시기도 하였지만, 변함없이 쾌활하셨다. 그는 실존하는 실체들에 대담하게 대면하셨고, 더욱이 왕국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열심을 통제했다; 그것이 그를 통제한 적은 결코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일”에 아낌없이 전념하셨다. 이러한 신성한 열정이 비(非)영적인 그의 형제들로 하여금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지켜보고 있던 온 우주는 그를 온전한 사람의 본보기로 그리고 영적 삶에서의 높은 기준에 대한 최극의 필사자 헌신의

원형틀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의 통제된 열심은 확 전염되었다; 그의 연관-동료들은 그의 신성한 낙관주의를 공유하는 것에 갇히게 되었다.

100:7.13 (1103.1) 이 갈릴리 사람은 슬픔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기쁨의 혼이었다. 그는 “기쁨을 향유하고 넘치도록 즐거워하라”고 항상 말씀하셨다. 그러나 의무가 요구될 때, 그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기꺼이 용감하게 걸으려 하셨다. 그는 기쁨에 찬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겸손하셨다.

100:7.14 (1103.2) 그의 용기는 그의 참을성에 못지 않았다. 조금하게 행동하도록 강요받았을 때, 그는 오직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대답하곤 하셨다. 그는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그의 침착함은 숭고하였다. 그러나 그는 악에서는 자주 분개하셨고 죄를 참지 못하셨다. 그는 땅에 있는 자기 자녀들의 번영에 해를 끼치는 것에 저항하려고 자주 강력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죄에 대한 그의 분개가 죄인에 대한 분노로 이끈 적은 결코 없었다.

100:7.15 (1103.3) 그의 용기는 뛰어났지만, 그는 결코 무모한 적은 없었다. 그의 표어는 “두려워 말라”였다. 그의 용감성은 드높았고, 그의 용기는 자주 영웅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용기는 사려 깊은 분별력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성에 의해 통제되었다. 그것은 신앙에서 탄생된 용기였고, 맹목적 추측에서의 무모함이 아니었다. 그는 참으로 용감하였지만 호기를 부린 적은 결코 없었다.

100:7.16 (1103.4) 주(主)는 존경의 원형들이셨다. 그가 젊었을 때에도 그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로 시작되었다. 그는 자기 동료들의 그릇된 경배조차도 존중했다. 그러나 이것이 종교적 전통에 대해 공격 하거나, 잘못된 인간의 믿음에 대하여 공격을 하는 것을 가로 막지는 않았다. 그는 참된 성스러움은 존경하였지만, 자기 동료들에게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인이라 확신하겠느냐?”라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

100:7.17 (1103.5) 예수는 자신이 선하셨기 때문에 위대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린아이들과 형제우애관계를 가졌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 삶에 있어서 온화하고 겸손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우주의 완성된 사람이셨다. 그의 연관-동료들은 그를 자발적으로 주(主)라고 불렀다.

100:7.18 (1103.6) 예수는 완전하게 통합된 개인성이셨다. 그리고 갈릴리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는 오늘도 필사자의 체험을 통합하고 인간의 수고들을 조화-협동하는 것을 계속하시고 있다. 그는 일생을 통합하고, 성격을 고귀하게 하며, 체험을 단순화하신다. 그는 인간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높이 올리고, 변환시키고 그리고 변모시킨다. 다음의 이것은 글자 그대로 참말이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새로운 창조체이다; 옛 것들은 지나가고 있다;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

100:7.19 (1103.7)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101 편 종교의 실제 본성

101:0.1 (1104.1) 하나의 인간 체험으로서, 종교는 진화하는 야만인의 원시적 두려움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영원한 하느님의 아들관계를 당당하게 의식하는 문명화된 필사자의 숭고하고도 웅장한 신앙 해방에 이르기까지 걸쳐있다.

101:0.2 (1104.2) 종교는 진보하는 사회 진화에서의 향상된 윤리와 도덕의 조상이다. 그러나 종교의 외적 그리고 사회적

현시활동이 인간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추진력으로써 강력하게 영향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로, 종교는 단순한 하나의 도덕적 활동이 아니다. 항상 종교가 사람의 진화하는 자연본성에서의 영감이지만, 그것이 그 진화의 비결은 아니다.

101:0.3 (1104.3) 개인성의 신념-신앙, 곧 종교는 믿음 없는 물질적 마음 안에서 잉태되는 논리, 피상적으로 모순되는 절망의 논리를 항상 극복한다. 그곳에는 실제로 참되고 순수한 내적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비쳐주는 참된 빛”이다. 그리고 이 영 인도는 인간 양심의 윤리적 자극과는 다르다. 종교적 확신의 느낌은 감정적인 느낌 이상(以上)이다. 종교의 확신은 마음의 이성 그리고 심지어는 철학의 논리를 초월한다. 종교는 신앙, 신뢰, 그리고 확신이다.

제 1 장. 참 종교

101:1.1 (1104.4) 참된 종교는 자연적 증거들에 의해 이치를 밝히거나 구체화될 수 있는 하나의 철학적 신념의 체계가 아니며, 신비주의의 낭만적 신봉자들에 의해서만 즐기게 되는 황홀경의 설명할 수없는 느낌에서의 환상적이고

신비적인 체험도 아니다. 종교는 이성의 산물이 아니지만, 내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이성적이다. 종교는 인간 철학의 논리로부터 유래되지 않지만, 필사의 체험으로서는 전적으로 논리적이다. 종교는 진화적으로 기원된 도덕적 존재의 의식 안에서 신성에 대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시간 안에서 영원한 실체들과 가지는 참된 체험, 아직 육신 안에 있는 동안 이루는 영적 만족의 실현을 나타낸다.

101:1.2 (1104.5) 생각 조절자는 그것을 통하여 자아-표현을 성취하는 아무런 특별한 기능구조가 없다; 종교적 감정들을 받아들이거나 표현하는, 아무런 신비한 종교적 기능도 없다. 이들 체험은 필사자 마음의 자연적으로 예정되어있는 기능구조를 통하여 만들어진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항상 내주하는 물질적 마음과 직접적인 교통에 종사하는 데에서의, 조절자의 어려움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들어있다.

101:1.3 (1104.6) 신성한 영은,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그리고 가장 영성화된 사고의 영역 안에서 필사 사람과 접촉을 이룬다. 너희를 하느님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은 너희의 느낌들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들이다. 신성한 본성은 아마도 오직 마음의 눈으로만 감지될 것이다. 그러나 내주 하는 조절자의 음성을 듣는, 실제로 하느님을 식별하는 마음은 순수 마음이다. “성스러움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다.” 그러한 모든 내적 그리고 영적 교제를 영적 통찰력이라고 부른다. 그러한 종교적 체험들은, 조절자와 진리의 영이 하느님의 진화하는 아들의 관념과 이상, 통찰력과 영적 분투의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그 위에서 작용할 때, 이들의 병합된 기능에 의하여 사람 마음 위에 만들어진 감동으로부터 생긴 결과이다.

101:1.4 (1105.1) 그래서 종교는 보는 것이나 느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나 통찰력에 의해서 살아가고 번영한다. 그것은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해 내는 것이나 어떤 독특한 체험을 찾아내는 것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들 속에 있는 새롭고도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해 내는 것에 들어있다. 최고의 종교적 체험은 믿음, 전통, 권위에서의 미리 행하는 활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종교는 숭고한 느낌과 순수하게 신비적 감정의 소산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 마음속에 거주하는 영 영향들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하나의 심오하게 깊고 실재적인 체험이며, 그러한 체험을 정신에 관한 용어로 정의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지 순수하게 개인적 체험의 실체성으로 하느님을 믿고있는 그러한 실체성을 체험하는 체험이다.

101:1.5 (1105.2) 종교가 물질적 우주론의 합리적 고찰에서의 산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람의 마음-체험 속에 시작되는 전적으로 합리적 통찰력의 창조이다. 종교는, 그것이 언제든지 순수하게 지적 이성과 철학적 논리의 형식으로 정의되거나 표현될 수 없으며 다소 신비적임에도 불구하고, 신비적인 묵상뿐만 아니라 고립된 깊은 사색에 의해서도 잉태되지 않는다. 참된 종교의 싹들은 사람의 도덕적 의식의 권역 안에서 그리고, 하느님에-굽주린 필사자 마음속에서 하느님을-계시하는 생각 조절자의 현존에 따른 결과로서 일어나는 인간 개인성의 기능, 곧 사람의 영적 통찰력의 성장 안에서 계시된다.

101:1.6 (1105.3) 신앙은 도덕적인 통찰력을 가치에 대한 양심적 분별력과 연합하며, 선재(先在)하는 진화적인 의무에서의

감각을 참된 종교의 계통으로 완성시킨다. 종교의 체험은 결국에는 하느님에 대한 어떤 일정한 의식으로 그리고 믿고 있는 개인성에서의 생존에 대한 의심할 여지없는 확신으로 귀결된다.

101:1.7 (1105.4) 그리하여 종교적 열망과 영적 충동이 사람으로 하여금 단순히 하느님을 믿기를 원하는 쪽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자연본성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반드시 하느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신념으로 몹시 감동을 받는 그러한 자연본성과 힘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진화적 의무에서의 감각 그리고 계시에서의 조명의 결과로 생기는 책무들은, 사람의 도덕적 자연본성 위에 너무나 깊은 인상을 주어서, 그가 하느님을 믿지 않을 그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마음의 위치와 혼의 태도에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한다. 그러한 깨우치고 기강 훈련된 개별존재에서의 더욱 높은 지혜, 철학을 뛰어넘는 지혜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하느님을 의심하거나 그의 선함을 불신하는 것이 인간 마음과 혼속에 있는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깊은 것—신성한 조절자—에 대한 진실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리라고 가르친다.

제 2 장. 종교의 사실

101:2.1 (1105.5) 종교의 사실은 합리적인 보통의 인간 존재들의 종교적 체험 안에 전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오직 이 의미에서, 그 안에서 종교가 과학적인 것, 또는 심지어 심리학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계시가 계시라는 증명은 바로 이와 똑같은 인간 체험에서의 사실이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다양하게 갈라진 자연 과학과 종교 신학을, 하나의 일관되고 논리적인 우주 철학, 하나의 조화-협동되고 단절되지 않은 과학과 종교 모두에 대한 해석으로 합성하고, 그리하여 무한자가 어떻게 물질 안에, 마음과 함께, 그리고 영 위에,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지 알려고 갈망하는 저들 질문하는 필사자 마음에서의 인간 체험에 대답이 되는 마음의 조화와 영의 만족을 창출한다.

101:2.2 (1106.1) 이성¹은 과학의 수단이다; 신앙은 종교의 수단이다; 논리는 철학이 시도하는 기법이다. 계시는 마음의 중재에 의한 물질과 영의 실체와 관계들에 대한 이해에서 합일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을 제공함으로써 모론시아 관점의 부재(不在)를 보상한다. 그리고 참된 계시는 결코 과학을 부자연적인 것으로,

종교를 비이성적으로, 또는 철학을 비논리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101:2.3 (1106.2) 이성, 과학에서의 연구를 거쳐, 자연을 통하여 첫째 원인에게 되돌아가도록 인도할 수 있지만, 과학의 첫째 원인을 구원의 하느님으로 변환시키는 데에는 종교적 신앙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시는 더 나아가서 그러한 신앙, 그러한 영적 통찰력의 확증을 위하여 필요하다.

101:2.4 (1106.3) 인간의 생존을 양육하는 하느님을 믿는 데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이치들이 있다:

101:2.5 (1106.4) 1. 인간 체험, 개인적 확신,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에 의해서 시작된, 어떻게든 등록된 희망과 신뢰.

101:2.6 (1106.5) 2. 진리의 계시. 진리의 영의 직접적인 개인적 사명활동에 의하거나, 신성한 아들들의 세상 증여에 의하거나, 또는 기록된 글의 계시를 통하거나 상관없이 계시된 것,

101:2.7 (1106.6) 과학은 첫째 원인에 대한 가정 안에서 그 이성-탐색을 종료한다. 종교는 구원의 하느님을 확신하기

전에는 그 신앙의 비행(飛行)을 멈추지 않는다. 과학의 분간하는 연구는 절대자의 실체와 실존을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종교는 개인성 생존을 이룩하시는 하느님의 실존과 실체를 아낌없이 믿는다. 형이상학이 철저히 실행하지 못한 것 그리고 심지어는 철학마저도 부분적으로 하지 못한 것을 계시가 해 주는데; 그것은 과학의 이 첫째원인과 종교가 가진 구원의 하느님이 하나이며 똑같은 신(神)임을 단언한다.

101:2.8 (1106.7) 이성(Reason)은 과학을 증명하고, 신앙(Faith)은 종교를 증명하며, 논리(Logic)는 철학을 증명하지만, 계시(Revelation)는 오직 인간의 체험(Experience)에 의해서만 정당화된다. 과학은 지식을 낳고; 종교는 행복을 가져오며; 철학은 합일(Unity)을 이룩하고; 계시는 우주 실체(Universal Reality)에 대한 이 삼원적 접근(Triune Approach)이 체험적(Experiential)인 조화(Harmony)임을 확인시킨다.

101:2.9 (1106.8) 자연(Nature)에 대한 깊은 사색(Reflection)은 오직 자연의 하느님, 운동의 하느님을 계시할 수 있을 뿐이다. 자연은 오직 물질과 운동 그리고 생(Being)—생명(Life)—만을 드러낸다. 물질에 에너지를 더한 것은 특정 조건(Conditions)아래에서 살아있는 형태로 현시(Manifest)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연 생명이,

현상으로서는 이처럼 상대적으로 연속적이지만, 개별존재성으로서는 전적으로 과도기적이다. 자연은 인간-개인성 생존에서의 논리적 믿음에 관한 토대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자연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종교적인 사람은 이미 그리고 맨 처음 자신의 혼 안에서 바로 이 동일한 개인적 하느님을 발견한 것이다.

101:2.10 (1106.9) 신앙은 혼속에 하느님을 계시한다. 진화하는 세계에서 모론시아 통찰력 대신으로 사용되는 계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이 그의 혼속에 나타내는 동일한 하느님을 자연 속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리하여 계시는 물질세계와 영적세계 그리고 심지어는 창조체와 창조자,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있는 만(灣)에 성공적으로 다리를 놓는다.

101:2.11 (1107.1) 자연에 대한 깊은 사색이, 지능적인 안내에서의, 심지어는 살아있는 감독에서의 방향을 논리적으로 가리켜 주기는 하지만, 그 어떤 만족스러운 방법으로도 개인적 하느님을 계시하지는 않는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자연은 종교에서의 하느님의 작품으로서 우주를 바라보는 존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는다. 하느님은

자연만 가지고는 발견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그를 발견하였다면, 자연의 연구는 우주의 더 높고 더욱 영적인 해석과 전적으로 일치하기 시작한다.

101:2.12 (1107.2) 계시는 하나의 신기원적인 현상으로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적인 인간 체험으로서 그것은 계속적이다. 신성(神性)은 필사자의 개인성 안에서, 아버지의 조절자 선물로, 아들의 진리의 영으로 그리고 우주 영의 성령으로 기능하며, 반면에 이들 세 가지 초(超)필사자 자질들은 인간의 체험적 진화 속에서 최극자의 사명활동으로 통합된다.

101:2.13 (1107.3) 참된 종교는 실체에 이르는 통찰력이고 도덕적 의식의 신앙-자녀이며, 독단적인 신조들로 이루어진 어떤 몸체에 대한 단순한 지적 찬동이 아니다. 참된 종교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영 자체가 우리의 영에게 증거 하는” 체험 속에 존재한다. 종교는 신학적인 명제들 속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영적 통찰력과 혼이 가진 신뢰의 숭고함 속에 있다.

101:2.14 (1107.4) 너희의 가장 깊은 자연본성—신성한 조절자—이 너희 안에 정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 신성한 완전함을

향한 어떤 갈망을 창조한다. 종교는 신성한 달성에 이르는 이 내적 충동의 인식에서의 신앙 행동이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의 방법으로 의식하게 되는, 곧 개인성의 생존의 기법이며 그리고 너희가 참되고 선한 존재로서 바라보도록 이끌어 온, 저들 모든 가치를 너희가 의식하게 되는, 혼의 신뢰와 확신이 이렇게 하여 생긴다.

101:2.15 (1107.5) 종교의 실현은 위대한 학문이나 명석한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 앞으로도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영적 통찰력이며, 그리고 그것이 어째서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종교 교사들의 일부, 심지어는 선지자들까지도, 때때로 세상의 지혜를 것처럼 적게 소유해 왔는가 하는 바로 그 이유이다. 종교적 신앙은 배운 자들에게나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나 똑같이 유용한 것이다.

101:2.16 (1107.6) 종교는 언제든지 그 자체적인 비평가와 재판관이 되어야만 한다; 외부로부터는 전혀 관찰될 수 없고, 납득은 더욱 그러하다. 개인적인 하느님에 대한 너희의 유일한 확신은 너희의 믿음 안에서, 그리고 체험과 함께 하는 영적인 사물에 대한, 너희 자신의 통찰력에 들어있다.

비슷한 체험을 이미 하였던 너희 동료 모두에게는, 하느님의 개인성 또는 실체에 대한 논쟁이 필요 없는 반면, 하느님에 대하여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논쟁으로도 결코 설득할 수 없다.

101:2.17 (1107.7) 심리학은 사회 환경에 대한 종교적 반응들의 현상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말로 시도를 할 수 있지만, 종교의 작용과 실제적이고 내적인 동기에 이르도록 뚫고 들어가기를 결코 희망할 수 없다. 신앙의 영역이며 계시의 기법인 신학만이 종교적 체험의 자연본성과 내용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능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제 3 장. 종교의 특징들

101:3.1 (1107.8) 종교는 너무도 생기가 넘치기 때문에 배움이 없는 데에서도 존속한다. 그것은 잘못된 우주론들과 그릇된 철학들로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으며, 형이상학이 혼동된 상태에서도 잔존한다. 종교의 모든 역사적 변천을 통하여 두루 그리고 그 안에는, 인간 진보와 구원에 필수 불가결한 것; 곧 윤리적 양심과 도덕적 의식이 항상 존속하고 있다.

101:3.2 (1108.1) 신앙-통찰력, 곧 영적 직관(直觀)은 사람에게 수여된 아버지의 선물인 생각 조절자와 연관되어 있는 조화우주 마음의 자질이다. 영적 이성, 혼 지능은 창조 영이 사람에게 수여한 선물인, 성령의 자질이다. 영적 실체들에 대한 지혜, 곧 영적 철학은 사람의 자녀에 대한 증여 아들들의 병합된 선물, 곧 진리의 영의 자질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靈的) 자질들의 조화-협동과 상호-연관은 사람이 잠재적 운명 안에 있는 하나의 영 개인성을 이루게 한다.

101:3.3 (1108.2) 원시적이고 싹트는 형태로 있는 이것이, 조절자가 육신의 자연적인 죽음에서 생존하는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동일한 영 개인성이다. 인간 체험과 관계적-연합되어 있는 영 기원의 이 혼합적 실존개체가, 생명운동이 중지됨에 따라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과도기 동반자관계에서 헤어지는 때의, 마음과 물체의 물질자아의 분해를, 신성한 아들들에 의해 제공되는 생명의 길을 따라, (조절자의 보호관찰 안에서)생존하게 할 수 있다.

101:3.4 (1108.3) 사람의 혼은 종교적 신앙을 통하여 스스로를
계시하며, 필사자 개인성이 어떤 괴로움을 주는 지적인
그리고 시련이 되는 사회적 상황에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특징적인 방법으로서, 그 창발하는 자연본성의
잠재적 신성을 실증한다. 진정한 영적 신앙 (참된 도덕적
의식)은 다음 안에서 계시된다:

101:3.5 (1108.4) 1. 선천적인 그리고 역행하는 동물적 경향들에도
불구하고 윤리와 도덕으로 하여금 진보를 이룩하게 함.

101:3.6 (1108.5) 2. 쓰라린 실망과 짓누르는 패배에 직면하여서도
하느님의 선함을 믿는 숭고한 신뢰를 창출함.

101:3.7 (1108.6) 3. 자연의 역경과 물리적인 재난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자신감을 발생시킴.

101:3.8 (1108.7) 4. 좌절시키는 질병과 심지어는 살을 에는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불가해한 평정과 지속을 이루는
평온을 나타냄.

101:3.9 (1108.8) 5. 부당한 학대와 지독한 불공정 앞에서 개인성의
신비로운 평정과 침착성을 유지함.

101:3.10 (1108.9) 6. 겉보기에 무자비한 숙명의 잔인성과 인간 복지에 대한 자연 기세의 명백하게 철저한 냉정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승리에 대한 신성한 신뢰를 유지함.

101:3.11 (1108.10) 7. 논리에서의 모든 반대하는 실증들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속하고 다른 모든 지적 궤변들을 성공적으로 견뎌.

101:3.12 (1108.11) 8. 거짓된 과학의 현혹시키는 가르침과 불합리한 철학의 설득력 있는 망상에 상관없이, 혼의 생존에 대한 대담한 신앙을 계속 나타냄.

101:3.13 (1108.12) 9. 현대의 복잡하고도 부분적인 문명에서의 짓누르는 과중한 부담에 상관없이 살아가고 승리함.

101:3.14 (1108.13) 10 인간의 이기심, 사회의 반목, 산업의 욕심, 그리고 정치적 잘못된 조절에도 불구하고 이타심의 계속되는 생존을 이루고 있음.

101:3.15 (1108.14) 11 악과 죄의 복잡한 현존에 상관없이 우주적 합일과 신성한 안내에 대한 숭고한 믿음을 확고하게 신봉함.

101:3.16 (1108.15) 12 무슨 일이든지 상관없이 하느님께 대한 경배를 계속해 나감. “그가 나를 치실 지라도, 나는 그를 섬길 것이다”라고 감히 선언함.

101:3.17 (1108.16)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신성한 영 또는 그의 속에 거주하는 영들을 갖고 있음을 세 가지 현상들에 의해서 아는데: 그것은 첫째는 개인적 체험—종교적 신앙—에 의해서이고; 둘째는 계시—개인적이고 인종적—에 의해서이다; 셋째는 실제적인 인간 실존에서의 실재적이고 시련을 주는 상황의 현존 안에서, 앞에 설명한 영을-닮은 12가지 행위로서 묘사된 바와 같이, 그의 물질적 환경에 대한 것처럼 비범하고 반(反)자연적 반응들의 놀랄만한 전시에 의해서이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더 있다.

101:3.18 (1109.1) 그리고 필사 사람에게, 인간 자연본성의 더할 나위없는 자질, 곧 종교적 체험에서의 개인적 소유물과 영적 실체를 확인하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종교의 권역 안에서, 신앙의 그러한 생생하고도 활발한 행위다.

제 4 장. 계시의 한계

101:4.1 (1109.2) 너희 세상이 기원들에 대하여, 심지어는 물리적인 기원들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주론에 가르침을 주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를 향하여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 계시에 대한 규칙들은 노력 없이 얻었거나 미성숙한 지식의 전달에 대한 그것들의 금지 조항에 의해 우리를 크게 제한한다. 계시된 종교의 일부분으로 제시된 우주론은 모두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쓰지 못할 운명에 처한다. 따라서 그러한 계시에 대한 미래의 연구자들은 그 안에 제시되어 연관된 조화우주론의 모습에서 실수를 발견하기 때문에, 계시가 담을 수도 있는 참된 종교적 진리의 어떤 요소를 버리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다.

101:4.2 (1109.3) 인류는 진리의 계시에 참여하는 우리가 우리들의 상급자들이 내리는 지시들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받고 있음을 납득해야만 한다. 우리에게는 천년의 과학적 발견들을 예측하기에는 자유롭지 않다. 계시자들은 계시 명령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어떤 방법도 모르며, 그것은 지금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항상 그럴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계시 발표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과 종교적

진리들은 다가오는 시대들의 기록 속에 남아 있게 되는 반면, 물리 과학에 관련된 우리들의 진술 대부분은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발견과 부가적인 과학 발달에 따라 교정되어야 할 필요성에 봉착할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발전들을 우리는 지금도 예견하고 있지만, 인간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이 계시 기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계시들이 필연적으로 영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 둔다. 이들 계시에서의 우주론은 영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현재의 지식에서의 조화-협동과 분류에 관하여 우리가 받은 허락에 제한된다. 신성한 또는 영적 통찰력이 하나의 선물로 주어지는 반면, 인간 지혜는 진화해야만 한다.

101:4.3 (1109.4) 진리는 언제나 계시이다: 자동-계시는 내주하는 조절자의 활동의 결과로 그것이 나타날 때이다; 신기원적 계시는 그것이 어떤 다른 천상(天上)의 대리자나 집단 또는 개인성의 기능에 의해 제시될 때이다.

101:4.4 (1109.5)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종교는 그 열매들에 의해, 그 자신의 선천적인 그리고 신성한 탁월성을 스스로 전시하는 그 방법과 범위에 의하여 판단될 것이다.

101:4.5 (1109.6) 비록 계시가 반드시 영적 현상일지라도, 진리는 다만 상대적으로 영감을 받은 것이 될 수도 있다. 우주론과 관련된 설명들이 결코 영감을 받지 않는 않지만, 그러한 계시들은 그것들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지식을 명백하게 한다는 점에서 굉장한 가치가 있다:

101:4.6 (1109.7) 1. 권한을 가지고 실수를 제거함으로써 혼란을 감소시킴.

101:4.7 (1109.8) 2. 알려진 또는 곧-알려지게-될 사실과 관찰을 조화-협동시킴.

101:4.8 (1110.1) 3. 아득한 과거에 있었던 신기원적 활동행위들에 관한 잃어버린 지식의 중요한 조각들을 회복시킴.

101:4.9 (1110.2) 4. 치명적으로 빠져있는 공백으로 획득되지 못한 지식에서 공백을 채우게 될 정보를 제공함.

101:4.10 (1110.3) 5. 지금 동봉되는 계시에 담긴 영적 가르침을 비추는 것과 같이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조화우주 자료를 제시함.

제 5 장. 계시에 의해 확대된 종교

101:5.1 (1110.4) 계시는, 영 취득의 진리로부터 진화의 실수를 분류하고 선별하는 필요한 작업으로, 말할 수 없이 긴 세월을 절약하는 하나의 기법이다.

101:5.2 (1110.5) 과학은 사실을 다룬다; 종교는 오직 가치에만 관여한다. 마음은 깨우친 철학을 통하여 사실과 가치 둘 모두의 의미를 연합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여 완벽한 실체의 개념에 도달한다. 과학은 지식의 권역이고, 철학은 지혜의 영역이며, 종교는 신앙 체험의 구체임을 기억해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현시활동의 두 가지 위상을 제시한다:

101:5.3 (1110.6) 1. 진화 종교. 원시적인 경배의 체험, 마음에서 유래되어지는 종교.

101:5.4 (1110.7) 2. 계시 종교. 영에서 유래되어지는 우주적 태도; 영원한 실체들의 보존, 개인성의 생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신 조화우주 신(神)의 생겨나는 달성에 대한 확신과 그 안에서의 믿음. 진화 종교가 조만간에 계시에서의 영적 확대를 받아들이도록 예정된 것은 우주 계획의 한 부분이다.

101:5.5 (1110.8) 과학과 종교는 둘 모두 논리적 추론들을 위해 일반적으로 용인된 어떤 기초들에 대한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철학도 또한 다음의 세 가지 것들의 실체들에 대한 가정에서 그것의 경주를 시작한다:

101:5.6 (1110.9) 1. 물질적인 육체.

101:5.7 (1110.10) 2. 인간 존재, 혼 또는 심지어는 내주 하는 영의 초물질적 위상.

101:5.8 (1110.11) 3. 인간 마음, 영과 물질 사이, 물질적 존재와 영적 존재 사이의 상호 교신과 상호-연관을 위한 기능구조.

101:5.9 (1110.12) 과학자들은 사실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철학자들은 관념들을 조화-협동시키는 반면, 선지자들은 이상들을 고양시킨다. 느낌과 감정은 종교의 변함없는 부수물들이지만, 그들은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체험의 느낌일 수도 있지만, 느끼는 체험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본질적으로는 논리(합리화)도 감정(느낌)도 종교적 체험의 일부분이 아니다, 그 둘 모두가 비록, 모든 것에서 개별존재 마음의 지위와 기질적인 경향에 따라 영적 통찰력을 실체로 조장하는, 신앙의 실행과 다양하게 연관되기도 하지만, 종교적 체험의 일부분이 아니다,

101:5.10 (1110.13) 진화 종교는 진화하는 사람 속에 있는 경배하는 특색의 조성과 육성이 위탁된 지역우주 마음 보조자의 자질이 외적(外的)으로 활동한 것이다. 그러한 원시 종교들은 윤리와 도덕, 곧 인간 의무에 대한 감각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그러한 종교들은 양심의 확신에 바탕을 두며, 상대적으로 윤리적 문명에서의 안정을 가져온다.

101:5.11 (1111.1) 개인적으로 계시된 종교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세 개인들을 대표하는 증여된 영들에 의해 후원되며, 특별히 진리의 확대와 관계되어 있다. 진화 종교는 개별존재에게 개인적 의무에 대한 관념을 통감하게 한다; 계시 종교는 사랑하고 있는, 황금룰에 점점 증가되는 강조를 쏟아 붓는다.

101:5.12 (1111.2) 진화된 종교는 전적으로 신앙에 의존한다.

계시는 신성(神性)과 실체의 진리에 대한 그 확대된 발표에서의 추가적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진화의 신앙과 계시의 진리가 실천적으로 작용하는 연합의 결과로 누적되는, 실재 체험에 대한 훨씬 더 가치 있는 증거를 갖고 있다. 인간적 신앙과 신성한 진리의 그러한 작용 연합은 모론시아적 개인성의 실재적인 습득에 이르는 길에서 풍부한 성격의 소유를 구성한다.

101:5.13 (1111.3) 진화적 종교는 오직 신앙의 확신과 양심의

증거만을 제공한다; 계시적 종교는 신앙의 확신 이외(以外)에 계시의 실체들 속에 있는 살아있는 체험에 대한 진리를 제공한다. 종교에서의 세 번째 위상 또는 종교의 체험에서의 세 번째 위상은 모론시아 상태, 곧 모타에 대한 더욱 확고한 이해를 이룩하는 것이다. 모론시아 진보 안에서 계시된 종교의 진리들이 점점 더 확대된다; 너희는 최극 가치들에 대한 진리, 신성한 선(善), 우주적 관계, 영원한 실체, 그리고 궁극적인 운명을 점점 더 알게 될 것이다.

101:5.14 (1111.4) 모론시아 진보에 두루, 진리의 확신이 신앙의 확신을 점점 더 대체시킬 것이다. 너희가 실재적인 영의 세계 속으로 최종적으로 불러 들어가게 되면, 순수한 영 통찰력의 확신이 신앙과 진리 대신에 작용하게 되거나 또는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이러한 기법의 개인성 확신과 관련하여 그리고 그 위에 겹쳐져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제 6 장. 진보적인 종교 체험

101:6.1 (1111.5) 계시된 종교의 모론시아 위상은 생존의 체험과 관계되며, 그것에서의 커다란 충동이 영 완전함의 달성이다. 또한 증가되는 윤리적 봉사에 대한 강제적인 부름과 연관하는, 경배에 대한 더 높은 충동이 있다. 모론시아 통찰력은 칠중자, 최극자, 그리고 심지어 궁극자의 영원히-확대하는 의식을 수반한다.

101:6.2 (1111.6) 모든 종교적 체험에 두루, 물질적 차원에 대한 그것의 초기 발단으로부터 총만한 영 지위의 달성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조절자는 최극자의 실존의 실체에 대한 개인적 실현의 비밀이다; 그리고 이 동일한 조절자는 또한 궁극자의 초월적 달성에 대한 너희의 신앙의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다. 실존적 하느님의 조절자 본질에

연합되는, 진화하는 사람의 체험적 개인성은 최극 실존의 잠재적 완성을 구성하며 그리고 그것은 선천적으로, 초월적 개인성의 초(超)유한한 결국 생겨남을 위한 기초이다.

101:6.3 (1111.7) 도덕적 의지는 이치에 맞는 지식에 기초하고, 지혜에 의해 증강되고, 그리고 종교적 신앙에 의해 인정되는 결정들을 포용할 것이다. 그러한 선택들은 도덕적 자연본성의 행동들이며 도덕적 개인성의 실존, 곧 모론시아 개인성의 그리고 결국에는 참된 영 지위의 선구자가 실존한다는 증거이다.

101:6.4 (1111.8) 지식의 진화적 유형은 기억원형세포 물질의 축적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창조체의 의식에서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이다. 지혜는 관계적-연합과 재결합의 과정에서 원형질의 기억으로부터 공식화된 관념들을 포용하며, 그러한 현상들이 인간 마음을 단순한 동물적 마음과 구분시킨다. 동물들도 지식을 소유하지만, 오직 사람만이 지혜 수용력을 소유하고 있다. 진리는, 아버지와 아들들의 영, 곧 생각 조절자와 진리의 영이 그렇게

마음위에 증여됨으로서 지혜-자질로서 부여받은, 개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01:6.5 (1112.1) 그리스도 미가엘은, 유란시아에 증여되었을 때, 자신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진화 종교의 지배 아래에서 사셨다. 그 순간부터 십자가형의 사건이 끝나기까지 그는 진화 종교와 계시 종교의 병합된 안내에 따라 자신의 일을 진행해 갔다. 부활하신 그 날 아침부터 상승할 때까지는 물질세계로부터 영의 세계로 이 세상에서 변화하는 모론시아 삶의 여러 단계들을 지나가셨다. 미가엘은 상승하신 후에 최극위 체험의 주인, 최극자의 실현이 되셨다; 네바돈에서 최극자의 실체를 체험할 수 있는 무제한적 수용능력을 소유한 한 분 개인 존재가 되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지역우주 속에 그리고 그 우주에 대하여 최극위의 주권에서의 지위를 즉시 달성하셨다.

101:6.6 (1112.2) 사람과의, 결국 생겨나는 융합 그리고 결과에 따른 내주하는 조절자와의 하나 됨—하느님의 본질과 사람의 개인성 합성—이 그를, 잠재적으로, 최극자의 살아있는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그렇게 한때의 필사 존재에게 최극자를 위하여 그리고 함께 우주 봉사에서의

최종성의 끝없는 추구에 대한 영원한 상속권을 보장해 준다.

101:6.7 (1112.3) 계시는 필사 사람에게, 시간의 진행이라는 수단을 써서 공간을 거치는, 것처럼 장엄하고도 흥미를 자아내는 모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관념-결정들로 조직화함으로서 시작해야만 한다고 가르친다; 그 다음에 지혜에게 자아-소유된 관념들을, 점점 더 실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숭고한 이상들, 즉 관념으로서 너무나 이성적이고 이상으로서 너무나 논리적이어서, 그들이 유한한 마음과 관계적-연합을 이룸으로서, 그로서 파라다이스 진리—우주 진리—의 시간-공간 현시활동인, 아들들의 진리의 영의 활동을 위한 준비가 마련되는, 그런 실재적 인간 보완물이 구축될 수 있는, 그래서 조절자가 그들을 병합하고 그리고 영성화하는 데에 과감하게 나서는, 것처럼 저들 관념으로 변환시키는 고귀한 과업에 끊임없이 수고하라고 권한을 위임한다, 관념-결정들, 논리적 이상 그리고 신성한 진리의 조화-협동은, 정의로운 성격, 곧 모론시아 세계의 늘-확대하고 점점 증가되는 영적 실체에 대한 필사자 입장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소유를 이루는 것이다.

101:6.8 (1112.4) **예수의 가르침은, 지식과 지혜와 신앙과 진리 그리고 사랑의 조화로운 조화-협동을 그토록 충분히 포용하여, 그로서 현세적인 평온과 지적 확신과 도덕적 깨우침과 철학적 안정성과 윤리적 민감성과 하느님-인식 그리고 개인적 구원에 대한 적극적 확신을 완벽하게 그리고 동시에 제공하는, 최초의 유란시아 종교를 이루었다. 예수의 신앙은 인간 구원의 최종, 필사자 우주 달성의 궁극에 이르는 길을 가리켜 주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101:6.9 (1112.5) **1. 영이신 하느님과의 아들관계에 대한 개인적 실현으로 물질적 족쇄로부터의 구원.**

101:6.10 (1112.6) **2. 지적(知的)인 속박으로부터 구원: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니,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함.**

101:6.11 (1112.7) **3.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서 구원, 필사 존재들의 형제우애관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모든 우주 창조체들의 형제신분에 대한 모론시아적 앎; 영적 실체에 대한 봉사-발견함 그리고 영 가치의 선함에 대한 사명활동을-계시함.**

101:6.12 (1113.1) 4. 우주의 영적 차원들에 대한 달성을 통한
그리고 하보나의 조화와 파라다이스의 완성에 대한
생겨나는 실현을 통한 자아의 미완성으로부터의 구원.

101:6.13 (1113.2) 5. 자아로부터의 구원, 최극 마음의 조화우주
차원의 달성을 통한 그리고 모든 다른 자아-의식 존재의
달성과의 조화-협동에 따른, 자아-의식의 한계에서 해방.

101:6.14 (1113.3) 6. 시간으로부터의 구원, 하느님을-인지함
그리고 하느님께-봉사함 안에서 끊임없이 진보하는
영원한 삶의 성취.

101:6.15 (1113.4) 7. 유한으로부터의 구원, 창조체가 아(亞)절대의
최종자-이후 차원에서 궁극자에 대한 초월적인 발견을
시도하게 하는, 바로 그 궁극자를 통하여 그리고 그 안에서
신(神)과 완전해진 하나를 이룸.

101:6.16 (1113.5) 그러한 칠중 구원은 우주 아버지의 궁극적
체험의 실현에서의 완성과 완전과 동등한 것이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 모든 것은 종교에 대한 인간 체험의 신앙의
실체 안에 들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들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신앙이 나아가 궁극을 넘어서는

실체들로서 조장되었고, 그리고 그 실체들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의 신앙은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조화우주 안에서 그러한 현시활동의 가능한 한도 내에서, 우주 절대의 지위에 접근하였다.

101:6.17 (1113.6) 예수의 신앙을 소유함으로써, 필사 사람은 시간 속에서 영원의 실체들을 미리 맛볼 수 있다. 예수는, 인간의 체험 안에서, 최종 아버지의 발견을 이루었고, 그리고 육신으로 필사 삶을 사는 그의 형제들은 그를 따라서 아버지를 발견하는 이 똑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 예수가 그의 신분으로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들도 그들의 신분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는 이 체험 안에서 똑같은 만족을 달성할 수 있다. 새로운 잠재들이 미가엘의 마지막 증여의 결과로 네바돈의 우주 안에 실재화 되었으며, 이들 중의 하나는, 만유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영원의 길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었다, 그리고 이 길은 심지어 공간의 행성에서 삶을 시작하면서 물질 육신과 피로 이루어진 필사자들에 의해서도 통과될 수 있다. 예수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새로운 길이며 생명의 길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로서 사람이, 단지 요청만 하면 그의 것이 될 것이라고 아버지께서 선포하신 신성한 상속을 받게 되는

길이다. 인간성에서의, 나아가 신성한 인간성에서의 신앙 체험의 시작과 끝이, 예수 안에서 넘치도록 실증되고 있다.

제 7 장. 종교의 개인적 철학

101:7.1 (1113.7) 하나의 관념은 행동을 위한 이론적 계획에 지나지 않으며, 반면에 적극적 결정은 행동의 정당화된 계획이다. 고정관념은 정당화 없이 승인되어진 행동의 계획이다. 종교의 개인적 철학을 세우게 하는 물질들은 개별존재의 내적 체험과 환경적 체험 둘 모두로부터 도출된다. 사회적 지위, 경제적 조건, 교육적 기회, 도덕적 경향, 제도적 영향, 정치적 발달, 인종적 경향, 그리고 어떤 사람의 시대와 장소에 따른 종교적 가르침은 모두 종교의 개인적 철학을 조성하는 요소들이 된다. 심지어는 선천적 기질과 지적 소질도 종교적 철학의 원형틀을 두드러지게 결정짓는다. 직업, 결혼 그리고 혈족 관계는 모두 삶에서의 사람의 개인적 기준의 진화에 영향을 준다.

101:7.2 (1113.8) 종교의 철학은 관념들과 이에 더해진 체험적 삶의 기본적 성장에서, 이 둘 모두가 연관-동료를 본받으려는 경향에 의하여 수정됨에 따라 것처럼, 진화되어 나온다. 철학적 결론의 건전성은, 의미에 대한 감수성과 평가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예리하고 정직하며 분별력 있는 사고(思考)에 달려 있다. 도덕적으로 비겁한 자들은 철학적 사고의 높은 수준을 결코 성취할 수 없다; 그것은 체험의 새로운 차원으로 침투하는 용기와 지적 삶의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자 시도하는 용기를 요구한다.

101:7.3 (1114.1) 가치에서의 새로운 체계가 제시되면서 실존으로 나아오고 있다; 원칙과 기준에서의 새로운 공식이 성취되고 있다; 습관과 이상은 다시 모습이 다듬어 진다; 개인적 하느님에 대한 어떤 관념이 도달되고, 뒤이어 그와 가지는 관계에 대한 확대된 개념으로 이어지게 된다.

101:7.4 (1114.2) 삶에 대한 종교적 철학과 비종교적 철학 사이의 큰 차이는 인지된 가치들의 자연본성과 차원 속에 그리고 충성심의 대상 속에 존재한다. 종교적 철학의 진화에는 네 개의 위상이 있다; 그러한 체험은 단지 순응하는, 전통과 권위에 대한 복종에 통치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는 그것이 일상적인 삶을 안정시키기에 단지 충분한, 하찮은 달성으로 만족될 수도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우연한 것을 기대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에 일찍부터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한 필사자들은 각자 홀로에게 좋은

것을 충분히 누리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세 번째 집단은 논리적 지성작용의 차원으로 진보하지만 그곳에서 문화적 노예상태에서의 귀결로 침체에 빠진다. 거대한 지성들이 문화적 속박의 무자비한 손아귀 안에 그토록 견고하게 붙들려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애석한 일이다. 자신들의 문화적 속박을, 과학이라고 거짓되게 부르는, 물질주의자들의 사슬과 거래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도 똑같이 애처로운 일이다. 철학의 네 번째 차원은 모든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장애로부터 자유를 달성하고, 정직하게, 충성되게, 두려움 없이, 그리고 서슴치않고 진실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

101:7.5 (1114.3) 모든 종교적 철학에 대한 엄격한 시험은, 지적인 분투 안에서 그리고 사회적 봉사 안에서 그들의 통일을 인지하는 바로 그 순간에서, 물질적 세계와 영적 세계의 실체들 사이에서 그것을 분별하느냐 못 하느냐에 있다. 건전한 종교 철학은 하느님의 것들을 시저의 것들과 혼동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순수한 경이로움의 심미적 예배종파를 종교에 대한 대용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101:7.6 (1114.4) 철학은 대체적으로 양심에서의 온당한 이야기였던 원시 종교를 조화우주 실체의 상승하는 가치들에 대한 살아있는 체험으로 변환시킨다.

제 8 장. 신앙과 믿음

101:8.1 (1114.5) 믿음은 그것이 삶에 동기를 부여하고 삶의 양식을 실현할 때 신앙의 차원을 달성해 왔다. 가르침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믿음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신앙은 확신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다. 마음의 상태는 그것이 실재적으로 삶의 양식을 지배할 때에만 신앙 차원을 달성한다. 신앙은 참된 개인적 종교 체험의 살아있는 속성이다. 사람은 참된 것(眞)을 믿고 아름다움(美)을 동경하며 선한 것(善)을 존경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경배하지는 않는다; 구원하는 신앙에서의 그러한 태도는, 이들 개인화되고 그리고 더욱 더 무한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신 오직 홀로이신 하느님에게 중심을 두고 있다.

101:8.2 (1114.6) 믿음은 항상 제한하고 속박한다; 신앙은 확대하고 풀어준다. 믿음은 고정시키고, 신앙은 해방시킨다. 그러나 살아있는 종교적 신앙은 고귀한

믿음들의 관계적-연합 이상(以上)이다; 철학의 고양된 체계 이상이다; 영적인 의미들과 신성한 이상들 그리고 최극의 가치들과 관련된 살아있는 체험이다; 하느님을 알게 하고 사람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믿음은 집단적인 소유물이 될 수 있지만, 신앙은 반드시 개인적이다. 신학적인 믿음은 어떤 집단에게 제시될 수 있지만, 신앙은 오직 종교인 개별존재의 가슴속에서만 발생된다.

101:8.3 (1114.7) 신앙은 그것이 실체들을 거부하고 그것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거짓된 지식을 수여할 때 그 진리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신앙은 그것이 지적 고결한-순수성의 배반을 조성하고 최극의 가치들과 신성한 이상에 대한 충성심을 무시할 때 하나의 배신자가 된다. 신앙은 필사자 삶의 문제 해결 의무를 결코 피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신앙은 편협이나, 박해나 또는 용졸함을 조장하지 않는다.

101:8.4 (1115.1) 신앙은 창조적인 상상력을 속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에 의한 발견들을 향하여 불합리한 선입관을 보이지도 않는다. 신앙은 종교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며, 그 종교인들로 하여금 용맹스럽게 황금률을

지키도록 강요한다. 신앙의 열정은 지식에 의거하며, 그것의 분투는 장엄한 평화의 전주곡이다.

제 9 장. 종교와 도덕

101:9.1 (1115.2) 종교의 어떤 공언된 계시라도, 만약 그것이 전에 있었던 진화적 종교에 의해 창출되고 조성되어온 윤리적 책무의 마땅한 요구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것이라고 간주될 수 없다. 계시는 진화되는 종교의 윤리적 지평을 반드시 확장시키며, 한편으로는 동시에 그리고 반드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계시들의 도덕적 책무들을 확대시킨다.

101:9.2 (1115.3) 너희가 사람의 원시 종교에 대해 (또는 원시인의 종교에 대해) 비판적인 판단을 내리는 자리에 앉는다고 가정할 때, 너희는 그들의 깨우침과 의식의 지위에 따라서 그들의 종교적 체험을 평가하고 그러한 미개인들을 판단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종교를 지식과 진리에 대한 네 자신의 표준들에 의해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라.

101:9.3 (1115.4) 참된 종교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가장 높은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 개념, 삶에서의 가장 위대한

가치들과 우주에서의 가장 깊이가 깊은 실체들에 대한 그의 가장 높은 해석을 구성하는 그러한 모론시아의 실체를 믿지 않는 것이 그에게 잘못이라고 억누를 수 없이 그를 충고하는, 혼 안에 있는 숭고하고도 심오한 신념이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는 다만 영적 의식에서 나오는 가장 높은 명령에 지능적 충성을 제공하는 체험이다.

101:9.4 (1115.5) 아름다움(美)에 대한 추구는 오직 그것이 윤리적 그리고 도덕의 개념을 풍성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만 종교의 일부분을 이룬다. 예술은 높은 영적 동기로부터 도출되는 목적으로 그것이 확산될 때에만 종교적이다.

101:9.5 (1115.6) 문명화된 사람의 깨우친 영적 의식은 어떤 특정한 지적 믿음 또는 어떤 사람의 특별한 삶의 방식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삶에 대한 진리 발견, 필사자 실존의 항상 반복되는 상황들에 대한 반응의 알맞고 올바른 기법에 관심을 둔다. 도덕적 의식은, 의무가 사람으로 하여금 행위성의 일상적인 통제와 지도 안에서 지키도록 요구하는, 저들 윤리적이고 새로 창발하는 모론시아 가치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자각에 적용되는 하나의 이름일 뿐이다.

101:9.6 (1115.7) 비록 종교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식하더라도, 종교는 적어도 그 본성과 기능에서의 다음의 두 가지 실천적 현시활동이 있다:

101:9.7 (1115.8) 1. 종교의 영적 충동과 철학적 압력이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 가치에 대한 그의 판단을 직접 밖을 향해 그의 동료들의 관련사 안에 펼쳐지게 만드는 경향—종교의 윤리적 반응—이 있다.

101:9.8 (1115.9) 2. 종교는 도덕적 가치들에서의 선재하던 개념과 그리고 영적 가치들에서의 더욱 포개어진 개념들과 조화-협동하는, 그것에 기초하고 그것으로부터 신앙으로 도출된 신성한 실체에 대한 영성화된 의식을 인간 마음을 위하여 창출한다. 그리하여 종교는 필사자 관련사에서의 일종의 검열관이 되며, 시간에서의 증진된 실체와 영원에서의 더욱 오래가는 실체, 실체 안에서 영화롭게 된 도덕적 신뢰와 자신감의 한 형태가 되어간다.

101:9.9 (1116.1) 신앙은 영구적 실체에 대한 도덕적 의식과 영적 개념 사이를 잇는 연결이 되고 있다. 종교는 사람이 현세적이고 자연적인 세계의 물질적인 한계들로부터 탈출하여 구원이라는 기법, 진보적인 모론시아 변환에

의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영원하고도 영적인 세계의
숭고한 실체로 들어가는 큰길이 된다.

제 10 장. 사람의 해방자인 종교

101:10.1 (1116.2) 지능적인 사람은 자신이 자연으로부터 발생한
존재, 물질적 우주의 한 부분임을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는 에너지 우주의 수학적 차원의 운동과 긴장 속에서 그
어떤 개별 개인성의 생존도 식별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물리적인 인과법칙의 고찰을 통하여 영적인
실체를 식별할 수도 전혀 없다.

101:10.2 (1116.3) 또한 인간 존재는 자신이 관념적 조화우주의
일부분임을 인식하지만, 개념이 필사자 생활 범주를
넘어서 지속 하더라도, 착상하는 개인성의 개인적 생존을
나타내는 그 어떤 선천적인 개념이 아무 것도 없다. 뿐만
아니라 논리와 이성의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도
논리학자나 이성 연구자에게 개인성 생존에 대한 영원한
진리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101:10.3 (1116.4) 법칙의 물질적인 차원은 인과관계 연속성, 그
전에 있었던 행위에 영향을 주는 끝남이 없는 반응을
제공한다; 마음 차원은 관념적 연속성의 영속, 선제한

개념들로부터의 개념적 잠재성의 끊임없는 흐름을 제시한다. 그러나 우주의 이러한 차원들 중 어떤 것도 호기심에 찬 필사자에게 지위의 불공평성으로부터 그리고 우주 안에서 과도기적으로 존재하는 실체, 제한된 생명 에너지의 소모에 따라 소멸될 처지에 처한 일시적 개인성이라는 견딜 수 없는 불안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큰길을 보여주지 못한다.

101:10.4 (1116.5) 사람이 우주 안에서 자신의 필사자 지위 속에 선천적인 족쇄를 영원토록 부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적 통찰력에 이르게 하는 모론시아의 큰길을 통해서이다. 에너지와 마음은 파라다이스와 신(神)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지만, 사람의 에너지 자질이나 마음 자질, 그 어떤 것도 그러한 파라다이스 신(神)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오직 영적 의미에서만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오직 영적인 의미에서만, 사람은 현재 파라다이스 아버지가 자질로서 부여되고 내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이다. 인류는 종교적인 체험의 큰길을 통해서 그리고 참된 신앙에 의해서 이루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신성을 발견할 수 없다. 하느님의 진리의 신앙을 받아들임은, 사람으로 하여금 물질적 한계들의

한정된 울타리들에서 탈출하도록 해주며, 물질적 영역, 죽음이 있는 곳으로부터, 영적인 영역, 생명이 영원한 곳인 그 곳까지, 안전한 행위의 성취에서의 합리적 희망을 잘 제공한다.

101:10.5 (1116.6) 종교의 목적은 하느님에 관한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적 불변성과 철학적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며, 그리고 필사자와 신성한 자를, 부분적인 자를 완전한 자와, 사람을 하느님과 혼합시킴으로써 인간 삶을 안정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관념성에 대한 사람의 개념이 실체를 자질로서 부여하는 것은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이다.

101:10.6 (1116.7) 신성에 대한 과학이나 논리적인 증명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성 자체만으로는 종교적 체험의 가치들과 우수성들을 전혀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말은 언제나 옳을 것이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의지로 하는 모든 자는 영적 가치들의 정당성을 이해할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 체험의 실체에 대한 증명을 제시함에 있어서 필사자 차원에서 이룩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접근이다. 오로지 그러한 신앙만이 물질세계의

기계적인 쇠고랑으로부터 그리고 지적 세계의 미완성에서 나오는 실수로 인한 왜곡으로부터 탈출을 잘 제공한다; 그것만이 개별 개인성의 연속적인 생존에 관한 필사자 사고(思考) 안에서의 곤경이 해결되도록 발견된 유일한 해답이다. 오직 그것만이 실체의 완성에 이르고 그리고 사랑, 법칙, 합일의 우주적 창조 속에서 생명의 영원에 이르고, 그리고 진보하면서 신(神) 달성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권이다.

101:10.7 (1117.1) 종교는 이상론에서의 고립 또는 영적 고독에 대한 사람의 감각을 효과적으로 치료한다; 종교는 믿는 자를 하느님의 아들로써, 새롭고도 의미 깊은 우주의 한 시민으로서, 자유인이 되게 한다. 종교는 사람이 자신의 혼 속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정의의 섬광을 따르면서, 무한자의 계획과 영원자의 목적에 자기 자신을 그에 따라 그렇게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확신을 준다. 해방된 그러한 혼은 즉시 이 새로운 우주, 자신의 우주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101:10.8 (1117.2) 너희가 신앙에 대한 그러한 변환을 체험할 때, 너희는 더 이상 수학적 조화우주의 노예와 같은 일부가

아니며 오히려 우주 아버지의 해방된 의지를 가진 아들이다. 그러한 해방된 아들은 일시적인 실존의 종말이라는 냉혹한 운명에 대항하여 더 이상은 홀로 싸우지 않는다; 더 이상은 모든 자연 현상, 자기에게 절망적으로 대항하는 불평등과 싸우지 않는다; 어쩌면 자신이 희망 없는 환상을 신뢰하거나 또는 상상력이 풍부한 실수에 자기 신앙을 고정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무력하게 만드는 두려움에 의해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는다.

101:10.9 (1117.3) 이제는 오히려, 하느님의 아들들이 실존에서의 부분적 그림자들을 정복하는, 실체가 별이는 승리의 전쟁을 싸우는 일에 함께 하도록 징집되어 있다. 마침내 모든 창조체들은, 거의 제한 없는 우주의, 모든 신성한 무리들과 하느님이, 생명의 영원과 지위의 신성(神性)을 달성하는 숭고한 투쟁 속에서 자기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다. 신앙으로-해방된 그러한 아들들은, 영원의 최극 기세들과 신성한 개인성들의 편에 서서, 시간에서의 전투에 분명하게 징집된 것이다; 심지어는 그들의 여정에 있는 별들까지도 이제 그들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 그들은 마침내 안으로부터, 하느님의 관점으로부터, 우주를

응시하고, 그리하여 모든 것은 물질적 고립의 불확실성으로 부터 영원한 영적 진보의 확실성으로 변환된다. 심지어는 시간 그 자체도 단지, 공간의 움직이는 찬란한 전신갑주 위에 파라다이스 실체들이 부어내어 던진 영원의 그림자가 되어갈 뿐이다.

101:10.10 (1117.4) [101:10.10]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102 편 종교적 신앙의 기초

102:0.1 (1118.1) 믿지 않고 있는 물질주의자에게는 사람은 단지 하나의 진화적인 우연한 현상에 불과하다. 그의 생존의 희망은 필사자 상상이 만든 허구에 매달려 있다; 그의 두려움과 사랑과 열망과 믿음은 기껏해야 물질에서의 생명 없는 특정한 핵들의 우발적인 병렬 배치의 반응일 뿐이다. 그 어떤 에너지의 전이나 신뢰의 표현도 무덤을 넘어서 그를 데려갈 수 없다. 사람들 중에서 최상자가 보여주는 헌신적인 수고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재능들은 죽음 곧, 영원한 잊혀짐과 혼 소멸의 길고도 외로운 밤에 의하여 사라지도록 숙명 되어있다. 이름도 없는 절망이 필사자 실존에서의 현세적 태양 아래에서 영위하는 삶과

고역에 대한 사람의 유일한 보상이 될 것이다. 일생의 매일 매일이 무자비한 숙명의 손아귀, 냉담하고 혹독한 물질의 우주가 선포해 온 인간의 아름답고 고귀하며 고상하고 선한 욕망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더할 나위없는 모욕이 될 것이라는. 그 숙명의 손아귀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조이고 있다.

102:0.2 (1118.2) 그러나 그러한 것이 사람의 끝이나 그리고 영원한 운명이 아니다; 그러한 광경은 영적 흑암 속에서 길을 잃게 된, 그리고 물질적 철학의 기계론적 궤변의 얼굴과 모습으로 용감하게 투쟁하는, 복잡한 배움에서의 혼돈과 왜곡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있는 그러한 일부 헤매고 있는 혼이 외치는 절망의 함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이러한 흑암의 숙명과 모든 이러한 절망의 운명은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하고 배우지 못한 하느님의 자녀들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신앙에서의 단 한번 뺏어주는 용감한 손길로 말미암아 영영토록 일소되는 것이다.

102:0.3 (1118.3) 이러한 구원하는 신앙은, 필사자의 체험 안에서 인간적 가치들이 물질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신성한 것으로, 시간으로부터

영원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사람의 도덕적 의식이 실현할 때, 인간의 가슴속에서 태어난다.

제 1 장. 신앙의 확신

102:1.1 (1118.4) 생각 조절자의 활동은 의무로 여기는 인간의 원시적이고 진화적인 감각이, 더욱 높고 더욱 확실한 신앙, 계시에서의 영원한 실체들에 대한 신앙으로 전환됨을 설명하는 요소가 된다. 최극 달성에 이르는 신앙의 행로들을 깊이 이해하는 수용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가슴 속에서 완전함을 이루려는 갈망이 있어야만 한다. 어떤 사람이라도 신성한 뜻을 행하기를 선택하기만 한다면, 그는 진리의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적인 것들은 사랑받으려면 알려져야만 하지만, 신성한 것들은 알려지려면 사랑받아야만 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참말이다. 그러나 정직한 의심과 진지한 질문은 죄가 아니다; 그러한 태도들은 완전함 달성을 향한 진보하는 여행에서 단지 늦어짐이 있음을 철자할 따름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가 하늘로 상승하여 이르는 왕국 안으로 사람이 입장하는 것을 확보하지만, 그러나 진보는 전적으로, 충만하게-성장한 사람의 튼튼하고 확신하는 신앙에서의 활기찬 실행에 달려 있다.

102:1.2 (1119.1) 과학에서의 이성¹은 시간의 관찰 가능한 사실에 바탕을 둔다; 종교에서의 신앙은 영원에서의 영계²계획으로부터 주장을 펼친다. 지식과 이성이 우리를 위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참된 지혜는 종교적 통찰과 영적 변형을 통하여 신앙이 성취하도록 허용하라고 우리를 타이른다.

102:1.3 (1119.2) 반란에 의한 고립 때문에, 유란시아에서 진리의 계시는 부분적이고 과도기적인 우주론들의 진술과 너무나도 자주 뒤섞여 왔다. 진리는 세대에서 세대로 변함없이 남아 있지만, 물리적 세계에 대한 연관된 가르침들은 날마다, 해마다 바뀐다. 어쩌다가 영원한 진리가 물질세계와 연관되는 진부한 관념들과 나란히 짝을 이루어 발견된다고 해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너희가 과학에서 점점 많은 것을 알수록, 너희는 점점 더 확신이 줄어들 것이다; 너희가 종교에서 점점 많은 것을 가질수록, 너희는 점점 더 확실해질 것이다.

102:1.4 (1119.3) 과학에서의 확실성은 전적으로 지능으로부터 나아간다; 종교에서의 확신은 총체적 개인성의 바로 그 기초들로부터 솟아 나온다. 과학은 마음의 납득력에

동의를 호소한다; 종교는 몸, 마음, 그리고 영의 충성과
헌신에 동의를 호소하며, 심지어 전체 개인성에게까지
동의를 호소한다.

102:1.5 (1119.4) 하느님은 너무나도 모든 것이 실제적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 표징이나
또는 소위 기적이라 불리는 그 어떤 실증도 그의 실체에
대한 증언으로 제공될 수 없다. 우리는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를 알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그의 무한한 실체에 대한
신성한 현시활동들 속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102:1.6 (1119.5) 내주 하는 생각 조절자는, 오직 조절자의 신성한
근원인 하느님과의 교제로만 적절하게 만족될 수 있는
그러한 멀리-미치는 호기심과 더불어, 사람의 혼 속에
완전함을 향한 참되고 그리고 찾아나서는 굶주림을
어김없이 불러일으킨다. 사람의 굶주린 혼은 살아 있는
하느님에 대한 개인적 실현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는 그
어떤 것이건 만족되기를 거부한다. 하느님이 높고 완전한
도덕적 개인성보다 얼마나 더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굶주린 그리고 유한한 개념 안에 있는 그보다 못한
그 어떤 것도 될 수는 없다.

제 2 장. 종교와 실체

^{102:2.1 (1119.6)} 관찰력이 예민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과 식별력
있는 혼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동료들의 삶 속에서 종교를
발견할 때 그것을 알게 된다. 종교는 어떤 정의(定義)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그것의 사회적, 지적,
도덕적, 영적 열매들을 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종교가
인간 종족의 자산이라는 사실로부터 자라나며; 그것은
문화의 소산이 아니다. 정말로, 종교에 대한 어떤 사람의
인식은 여전히 인간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무지의 속박,
미신의 포로, 억지 이론의 속임, 그리고 잘못된 철학의
환상에 종속된다.

^{102:2.2 (1119.7)} 참된 종교적 확신의 특유한 특징들 중의 하나는,
그것이 확언하는 바의 절대성과 그것의 태도의
억제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영이 너무나도
침착하고 조절되어서 자아-주장 또는 자기본위적인
도취라는 인상을 조금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종교적
체험의 지혜는 그것이 인간적으로 기원되는 동시에

조절자의 유도를 받는다는 면에서 역설적인 어떤 것이라 할 수 있다. 종교적인 효력은 개별존재의 개인적 특권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지혜의 영속하는 근원과 사람의 숭고한 동반자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참되고 순수한 종교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모든 깨우친 필사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명령적인 것이 된다.

102:2.3 (1119.8) 종교적인 체험을 정체성 확인하고 분석하는 일은 어렵지만, 그러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마치 이미 영원한 존재의 현존 안에 있는 것처럼 살면서 나아가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다. 믿는 사람들은 마치 불멸성이 이미 그들의 소유라도 된 듯이 이 현세적 삶에 반응한다. 그러한 필사자들의 삶 속에는, 오직 세상의 지혜만을 빨아들여 온 그들 이웃들의 삶들로부터 그들을 언제까지나 분리시키는 정당한 기원성과 자연발생적 표현이 있다. 종교인들은 일시적인 현재의 시간 속에 선천적으로 주어진 변천들의 고통스러운 압박과 괴롭게 만드는 성급함으로부터의 효과적인 해방을 영위하는 듯이 보인다; 그들은 생리학과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의 법칙들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개인성의 안정과 성격적 평온을 나타낸다.

102:2.4 (1120.1) 시간은 지식의 달성에서 변할 수 없는 요소이다; 은혜 가운데에 성장하는 중요한 요인들도 있긴 하지만, 종교는 그러한 수여자질들이 종교적 체험의 모든 위상 안에서 명백한 전진에 즉시 쓰여 지도록 만든다. 지식이란 영원한 탐구이다; 너희는 항상 배우고 있지만, 너희는 결코 절대 진리에 대한 충만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지식 자체 속에는 절대적 확실성이 결코 있을 수 없다, 오직 어림잡음의 가능성이 증가될 뿐이다; 그러나 영적 빛을 받은 종교적 혼은 알고 있으며, 바로 지금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심오하고 적극적인 확신성은, 그러한 건전한-마음을 지닌 종교인으로 하여금, 느리게-움직이는 과학의 발전에 그 물질적 끝이 있는 처지에 묶인, 인간 지혜의 진보에서 생기는 상승과 하강 안에서, 흥미를 잃는 그 어떤 것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지도 않는다.

102:2.5 (1120.2) 심지어는 과학이 발견하는 것들조차도 그것들이 해명되고 상호 관계성을 가지기 전에는, 그 관련 사실들이 마음의 생각 흐름 안에서의 순회를 통하여 실재적으로 의미가 되기 전에는 인간 체험의 의식 안에서 진정으로 실재가 아니다. 필사 사람은 자신의 물리적 환경조차 마음 차원에서, 곧 그것의 정신 심리적 기록부에서의

전망으로부터 바라본다. 그러므로 사람이 우주에 관해 고도로 통합된 해석을 하려고 하고 그런 다음 이러한 자신의 과학적 에너지 합일체를 자신의 종교적 체험에서의 영적 합일체와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애쓰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마음은 합일체이다; 필사자의 의식은 마음 차원에서 존재하며 마음 자질의 눈을 통하여 우주적 실체들을 지각한다. 마음 투시도가 실체의 근원인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실존적 합일을 산출하지 않지만, 최극존재로서 그리고 그 안에서 에너지와 마음과 영의 체험적 합성을 사람에게 묘사할 수 있고 또 가끔 그렇게 한다. 그러나 마음은 만일 그러한 마음이 물질적 사물, 지능적 의미, 그리고 영적 가치들을 확고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실체의 다양성에서의 이 통일을 결코 이룩하지 못한다; 오직 기능적 실체의 삼원일체(三元一體)의 조화 속에서만 합일체가 있으며, 오직 합일체 속에서만 조화우주 불변성과 일관성의 실현에서의 개인성 만족이 있다.

102:2.6 (1120.3) 합일체는 인간 체험 속에서 철학을 통하여 가장 잘 발견된다. 그리고 철학적 생각의 본체가 반드시

물질적인 사실들 위에 항상 기초를 두는 반면, 참된 철학적 원동력의 혼과 에너지는 필사자의 영적 통찰력이다.

102:2.7 (1120.4) 진화적인 사람은 원래 어려운 일을 좋아하지 않도록 태어났다. 증대되는 종교적 체험의 강제적인 충동들과 밀려오는 요구들에 대하여 삶의 체험 속에서 보조를 맞추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영적 성장과 지적 확대, 사실적 확장, 그리고 사회적 봉사 안에서의 끊임없는 활동이다. 매우 활동적인 개인성과 상관이 없는 실제적 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나태한 사람들은 진부한 종교적 신조들과 독단들의 거짓된 피난처로 은거하는 휴양을 통하여 일종의 교묘한 자아-기만 형식으로, 참다운 종교적 활동에서의 엄중함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찾아나서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참된 종교는 살아있다. 종교적 개념들의 지적 결정화(結晶化)는 영적 죽음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관념이 없는 종교를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종교가 일단 오직 하나의 관념으로 축소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일종의 인간 철학이 되었을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삶의 짜증나는 요구들로부터 탈출하는 하나의 큰길로 종교의 정서적인 관념들을 이용하려는 불안정하고 거의 단련 되지 않은 혼들의 다른 유형들이 존재한다.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어떤 필사자들이 진화적인 삶의 끊임없는 압박으로부터 피하려고 시도할 때, 종교는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피난처, 가장 좋은 탈출 큰길을 제시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사람으로 하여금 용감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영웅적으로 삶의 변천에 대처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종교의 사명이다. 종교는 진화적인 사람이 천부적으로 가진 최극의 자질인데, 그로 하여금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분을 보는 것처럼 인내하고” 계속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아무튼, 신비주의적 신앙은, 인간적 사회와 교제라는 열린 경기장 안에서 종교적 삶을 사는 보다 더 강건한 활동들을 즐기지 않는 그 인간들이 영위하는 삶으로부터 도피한 어떤 것인 경우가 종종 있다. 참된 종교는 반드시 행한다. 사람이 실재적으로 종교를 가질 때, 또는 오히려 종교가 그 사람을 지배하도록 정말로 허용되었을 때, 행위는 그것의 결과가 될 것이다.

종교는 단순한 사고(思考) 또는 행함이 없는 느낌에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102:2.9 (1121.2) 우리는 종교가 때로 어리석게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와는 상관없이 행동한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적어도 행한다. 종교적인 신념의 탈선은 피로 얼룩진 박해를 가져오지만, 종교는 항상 그리고 무언가를 한다; 그것은 역동적이다!

제 3 장. 지식, 지혜, 그리고 통찰력

102:3.1 (1121.3) 지식의 부족이나 교육의 결핍은 보다 높은 종교적 달성을 불가피하게 장애가 되는데 왜냐하면 영적 본성에서의 그러한 허약한 환경은 과학적 지식의 세계와 철학적으로 접하는 주요 통로를 종교로부터 빼앗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종교에서의 지적 요소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들의 과도한 발달은 심하게 장애가 되고 곤란하다. 종교는 반드시 역설적인 필요성 밑에서 계속적으로 수고하여야만 한다: 그것은 곧 생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만드는 필요성과 한편으로는 그와 동시에 모든 사고의 영적인 봉사가능성을 깎아내리는 필요성이다.

102:3.2 (1121.4) 종교적인 사색은 필연적이기는 하지만 항상 해로우며; 사색은 변함없이 그것의 대상을 왜곡한다. 사색은 물질적이거나 또는 인본주의적인 어떤 것으로 종교를 변형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그리하여 논리적인 생각의 명료성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반면, 간접적으로는 종교가 현세적인 세계, 그것이 영속적으로 대조를 이루어야만 할 바로 그 세상에서의 하나의 기능인 것처럼 나타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항상 역설적인 특성을 갖게 될 것인데, 그 역설은 우주의 물질적 차원과 영적 차원—모론시아 모타, 진리 식별과 합일체 인식을 위한 초이성적 감수성—사이의 체험적 연결이 결핍됨으로 인하여 발생된다.

102:3.3 (1121.5) 물질적인 느낌, 인간 감정은 물질적인 행동, 이기적 행동에 직접적으로 이끈다. 종교적인 통찰력, 영적 동기는 종교적인 행동, 사회적 봉사의 사심-없는 행동 그리고 이타적 박애심에 직접적으로 이끈다.

102:3.4 (1121.6) 종교적 욕망은 신성한 실체를 갈구하며 탐구하는 것이다. 종교적 체험은 하느님을 발견하고 있음에 대한 의식(意識)의 실현이다. 그리고 어떤 인간 존재가

하느님을 발견할 때는, 그 존재의 혼 안에서는 함께
체험되는 것이 있으니, 발견에서 나오는 승리의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걱정이 너무나 일어나서, 그는 자신보다 덜
계몽된 자기 동료들을 찾아내어 사랑 넘치는 봉사-접촉을
추구하려고 재촉되는데 , 그것은 그가 하느님을
찾아냈음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동료들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고귀하게 하려고 자신의 혼
안에서 영원한 선함이 넘쳐흐르게 허용하는 그러한
체험이다. 실제적인 종교는 증가되는 사회 봉사로 이끈다.

102:3.5 (1122.1) 과학, 지식은 사실 의식으로 이끈다; 종교, 체험은
가치 의식으로 이끈다; 철학, 지혜는 조화-협동 의식으로
이끈다; 계시(모론시아 모타의 대용품)는 참된 실체의
의식으로 이끈다; 반면에 사실과 가치 그리고 참된 실체에
대한 의식의 조화-협동은, 바로 그 개인성의 생존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함께, 개인성 실체, 존재의 최고점에
대한 인식을 구축한다.

102:3.6 (1122.2) 지식은 사람들을 배치하도록, 사회적인 계층과
특권계급을 창설하도록 유도한다. 종교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그리하여 윤리와 이타심이 생성되도록

유도한다. 지혜는 각 사람의 동료들과 관념들 둘 모두에 대한 더 높고 더 나은 교제로 인도한다. 계시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모험 여행을 시작하게 한다.

102:3.7 (1122.3) 과학은 사람들을 분류하고; 종교는 사람들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한다; 지혜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하지만; 계시는 사람을 찬미하고 하느님과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그의 역량을 드러낸다.

102:3.8 (1122.4) 과학은 문화의 형제신분을 이루기 위하여 헛되이 분투한다; 종교는 영의 형제신분이 이룩되게 한다. 철학은 지혜의 형제신분을 위해 분투한다; 계시는 영원한 형제신분인 파라다이스 최종의 무리단들을 묘사한다.

102:3.9 (1122.5) 지식은 개인성의 사실에서 자부심을 산출한다; 지혜는 개인성의 의미에 대한 의식이다; 종교는 개인성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체험이다; 계시는 개인성 구원에 대한 확신이다.

102:3.10 (1122.6) 과학은 무한한 조화우주의 분할된 부분들을 정체성 확인하고 분석하며 분류하려고 추구한다. 종교는

전부로서의-관념, 전체 조화우주를 파악한다. 철학은 전부로서의 영적-통찰력 개념과 과학의 물질적 부분들을 정체화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에 있어서 철학이 실패하는 그 점에서, 계시는 성공을 거두는데, 조화우주 순환계가 우주적이고 영원하며 절대적이고 무한함을 확인한다. 무한자 스스로 이신이의 이 조화우주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없고 무한하며 모든 것—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으며 제한이 없음—을 포함 한다. 그리고 우리는 무한자 스스로 이신 이가 또한 네바돈 미가엘의 아버지이시며 인간을 구원하는 하느님이심을 증언하는 바이다.

^{102:3.11 (1122.7)} 과학은 신(神)을 하나의 사실로 표시한다; 철학은 하나의 절대자의 관념을 제시한다; 종교는 하나의 사랑하는 영적 개인성으로 하느님을 그린다. 계시는 신(神)의 사실, 절대자의 관념 그리고 하느님의 영적인 개인성의 합일을 단언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 개념을 우리의 아버지—실존에서의 우주적 사실, 마음에서의 영원한 관념, 생명에서의 무한한 영—로 나타낸다.

^{102:3.12 (1122.8)} 지식의 추구는 과학의 구성 요소이다; 지혜 탐구는 철학이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종교이다; 진리에

대한 굶주림이 계시이다. 그러나 실체의 느낌을 조화우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영적 통찰력에 덧붙여 주는 것은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이다.

102:3.13 (1122.9) 과학에서는, 관념이 그 실현에서의 표현보다 앞서며; 종교에서는, 실현의 체험이 관념에서의 표현보다 앞선다. 진화하는 믿고자-하는-의지와, 깨우친 이성, 종교적 통찰력, 계시의 산물—믿고 있는 의지—사이에는 광대한 차이가 있다.

102:3.14 (1122.10) 진화에 있어서, 사람이 하느님에 대한 개념을 창출하도록 종교가 인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계시는 진화하는 하느님의 사람 자신에 대한 현상을 나타내는 반면, 그리스도 미가엘이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하느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계시하시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진화는 하느님을 사람과-같음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계시는 사람을 하느님과-같음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102:3.15 (1122.11) 과학은 단지 최초의 원인으로, 종교는 최극 개인성으로, 철학은 합일로서 만족된다. 계시는 이러한 세 가지가 하나이며, 그 모든 것들이 선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영원한 실체는 우주의 선(善)이며 공간 악에서의 시간 환상이 아니다. 모든 개인성들의 영적인 체험 속에서는, 실체가 선이고 선이 실체라는 사실이 항상 진리이다.

제 4 장. 체험에서의 사실

102:4.1 (1123.1) 생각 조절자의 너희 마음속에 있는 현존 때문에, 하느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신비로운 일이 아니듯이, 인간적이든지 초인간적이든지 다른 어떤 존재의 마음을 안다는 의식(意識)의 확신은 너희에게 신비로운 일이 아니다. 종교와 사회적 의식은 이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들이 다른 존재가 염두에 두는 것에 대한 의식에 입각한다는 점이다. 너희가 다른 존재들의 관념을 마치 너희 것인 양 받아들이게 하는 기법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음을 너희 속에 품어라"고 할 수 있는 기법과 같다.

102:4.2 (1123.2) 인간의 체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의 활동적이고 호기심 많은 자아와, 그리고 다른 어떤 활동적인 외부 실체 사이의 상호작용에 불과하다. 체험의 질량은 개념의 깊이와, 여기에 더해진 외부자의 실체에 대한 인지의 전체성으로 결정된다. 체험의 운동은

기대하는 상상의 기세와, 여기에 더해진 접촉되는 실체의 외부 본질특성에 대한 감각적 발견에서의 예민함과 동등하다. 체험의 사실은 자아-의식과 다른-실존들—다른 사물존재성, 다른 마음존재성, 다른 영(靈)존재성—을 합한 것 안에서 발견된다.

102:4.3 (1123.3)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또는 우주 안에서 외로운 존재가 아님을 매우 일찍부터 인식하게 된다. 자아신분의 환경 속에서, 다른-마음작용에 대한 자아-의식이 자연 본성적으로 저절로 발달된다. 신앙은 이러한 자연적 체험을 종교, 하느님을 다른-마음작용에서의 실체—근원, 자연, 그리고 운명—로서 인지하는 것으로 전환시킨다. 또한 그러한 하느님에 대한 지식은 언제라도 그리고 항상 개인적 체험의 실체이다. 만약에 하느님이 개인성이 아니시라면, 그는 인간 개인성이 겪는 실제 종교 체험의 살아있는 부분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102:4.4 (1123.4) 인간의 종교적 체험 속에 나타나는 실수의 요소는, 우주 아버지에 대한 영적 개념을 오염시키는 물질주의의 내용물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영-이전(以前)의 사람의 우주 안에서의 진보는, 순수하고

참된 영의 실체와 하느님의 자연본성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관념들을 떨쳐버리는 체험 속에 존재한다. 신(神)은 영(靈) 이상(以上)이지만, 영적인 접근만이 상승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유일한 것이다.

102:4.5 (1123.5) 기도가 종교적인 체험의 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현대 종교인들에 의해 잘못되게 강조되어 왔는데, 더욱이 경배라는 더욱 근본적인 교제가 너무 무시되어 왔다. 마음의 반영하는 힘은 경배에 의해 결정되고 확장된다. 기도는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반면 경배는 운명을 밝혀준다.

102:4.6 (1123.6) 계시된 종교는 인간 실존에서 통합을 이루게 하는 요소이다. 계시는 역사를 통합하고, 지질학, 우주론, 물리학, 화학, 생물학, 사회학, 그리고 심리학을 조화-협동시킨다. 영적 체험은 사람의 조화우주의 실제 혼이다.

제 5 장. 목적이 있는 잠재의 최극위

102:5.1 (1123.7) 믿음이라는 사실의 확립이, 믿어지는 것에 대한 사실을 성립시키는 것과 일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성의 지위를 향하는 단순한 삶의 진화적인 진보는, 시작할 수 있는 개인성 잠재가 실존한다는 사실을

실증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존재하는 우주들에서는, 잠재가 항상 실재보다 최극이다. 진화하는 조화우주에서의 잠재는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것이며,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것은 신(神)의 의도적인 지시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102:5.2 (1124.1) 그와 동일한 의도적 최극위는, 원시적인 동물적 공포심이 계속적으로 깊어지는 하느님에 대한 존경으로 그리고 우주에 대한 점점 더 심화되는 경외심으로 전환될 때, 마음 관념작용의 진화 속에서 나타난다. 원시인은 신앙보다 더 종교적인 두려움을 가졌었으며, 실재적인 마음을 지배하는 잠재적 영의 최극위는 비겁한 이 두려움이 영적인 실체들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으로 전환될 때 실증되어 진다.

102:5.3 (1124.2) 너희는 진화 종교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기원되는 개인적-체험의 종교는 설명할 수 없다. 인간의 도덕성이 가치들을 깨달을 수 있지만, 오직 종교만이 그러한 가치들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영성화(靈性化)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감정적으로 취급되는

도덕성 이상의 어떤 것이다. 사랑이 의무를 가져오듯이, 아들관계가 예속성을 가져오듯이, 본질이 실체를 가져오듯이, 종교는 도덕성을 가져온다. 도덕성은 전능의 통제자, 섬김을 받으실 신(神)을 드러내며; 종교는 모든-사랑이신 아버지, 경배를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실 하느님을 드러낸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종교의 영적인 잠재성이 진화의 도덕성이 갖는 실재성 의무를 지배한다.

제 6 장. 종교적 신앙의 확실성

102:6.1 (1124.3) 종교적 두려움을 철학적으로 제거하는 것과 그리고 꾸준한 과학의 발전은 잘못된 하느님들을 사라지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사람이 만든 신(神)들이 이렇게 사라짐으로써 영적인 선견지명을 일시적으로 흐리게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사랑의 살아 계신 하느님을 그토록 오랫동안 불분명하게 만들었던 그 무지와 미신을 타파할 것이다. 창조체와 창조자 사이의 관계는 하나의 살아있는 체험, 명확한 경계에 속박되지 않는, 하나의 역동적인 종교적 신념이다. 삶의 일부를 고립시키고 그것을 종교라고 부르는 것은 삶의 집대성을-해체시키고 그리고 종교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경배를 받으시는 하느님께서 모든 충성이 아니면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 이유이다.

102:6.2 (1124.4) 원시인의 하느님들은 그들 자신의 그림자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상태였으며; 살아 계신 하느님은 신성한 빛이신데, 그것의 중단이 모든 공간의 창조 그림자들을 구성한다.

102:6.3 (1124.5) 철학적인 달성에서의 종교인들은 개인적 구원의 개인적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소유하며, 그것은 실체, 가치, 성취의 차원, 고양된 과정, 변형, 시간-공간의 궁극자, 이상화(理想化), 에너지의 개인성구현, 중력의 실존개체, 인간 구체적 투사 활동, 자아의 이상화, 자연본성의 상승, 선(善)함을 향한 경향, 진화의 나가려는 충동, 또는 숭고한 전제보다도 그 이상의 어떤 것이다. 종교인은 사랑의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 사랑은 종교의 본질이며 우월한 문명의 원천이다.

102:6.4 (1124.6) 신앙은 그럴듯한 철학적 하느님을 변환시켜서 개인적인 종교 체험 속에서 확실성을 주는 구원의 하느님이 되게 한다. 무신론이 신학의 이론에 도전할 수

있지만, 개인적 체험의 신빙성에 대한 자신감은, 자라나서 신앙이 되고 있는 그 믿음에서의 진리를 확인한다.

102:6.5 (1124.7) 하느님에 관한 신념은 현명한 이성 작용을 통하여 도달될 수 있지만, 각 개별존재는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개인적인 체험에 의해서만 하느님을 알게 된다. 삶에 관계하는 한, 가능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지만, 조화우주 실체와 접촉할 때에는, 그러한 의미들과 가치들이 살아있는 신앙에 의해 접근되면서 확실성이 체험될 수 있다.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이 지식이 지적인 논리에 의해 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에 의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도, “내가 안다”고 감히 말한다. 의심하는 그러한 각 사람에게 믿는 자는 오직 “내가 알지 못하다는 사실을 당신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대답할 뿐이다.

102:6.6 (1125.1) 이성이 항상 신앙을 의심할지라도, 신앙은 항상 이성과 논리 두 가지를 다 보충할 수 있다. 이성은 신앙이 도덕적 확실성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영적 체험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창조한다. 하느님은 최초의 진리이시고 최종적인 사실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리는 그로부터 기원되는 반면, 모든 사실들은 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하느님은 절대 진리이시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진리로 알 수 있지만, 하느님을 납득하려면—설명하려면—, 그는 반드시 우주들의 우주에 대한 사실을 탐구해야만 한다. 하느님의 진리에 대한 체험과 사실로서의 하느님에 대한 무지 사이의 광대한 심해(深海)는 살아있는 신앙에 의해서만 연결될 수 있다. 이성 자체만으로는 무한한 진리와 우주적 사실 사이의 조화-협동을 이룰 수 없다.

102:6.7 (1125.2) 믿음은 의심을 이겨내거나 두려움을 견뎌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앙은 항상 의심을 이겨내고 승리한다. 왜냐하면 신앙은 긍정적이고 또한 동시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보다, 진리가 실수보다, 체험이 이론보다, 영적인 실체가 시간과 공간의 고립된 사실들보다 언제든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이 확실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는, 그러한 신자들, 신앙인들이 참된 이 영적 체험의 결과로 맺힌 영의 사회적 열매 속에 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이웃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102:6.8 (1125.3) 과학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하나의 가능성이고, 심리학에 있어서는 바람직스러운 것이며, 철학에 있어서는 하나의 있음직한 것이고, 종교에게 있어서는 확실성, 종교적 체험이라는 하나의 실재성이다. 이성은, 있음직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없는 철학이, 정확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발견하는 그 종교적 신앙을 매우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과학은 경솔한 믿음이라는 구실로 종교적 체험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며, 사람의 지적 자질과 철학적 자질이 단계적으로 더 열등한 지성으로부터 창발하였다는 가정을 고집 하는 한 그들은 더욱 뒷걸음질 쳐서 결국에는 모든 생각과 느낌이 철저히 배제된 원시적 생명에서 기원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102:6.9 (1125.4) 진화의 사실들은, 하느님을 아는 필사자가 종교적 삶에서 얻는 영적 체험의 확실성이 지니고 있는 실체의 진리에 반하여 열거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지능적 사람들은 어린아이같이 따지는 것을 멈추어야만 한다, 그리고 사실의 관찰과 함께 나란히, 진리의 개념을

너그럽게 건디어내는 논리, 어른다운 일관된 논리를 적용하려고 시도해야만 한다. 과학적 물질주의는, 되풀이되어 일어나는 각각의 우주 현상에 부딪쳐서, 명백하게 우수한 것이 명백하게 열등한 것 속으로 되돌아감으로서, 그 현재의 결함들을 배상해 주려고 끈질기게 매달려 있을 때, 파탄되어 버린다. 일관성에는 목적을 가진 창조자의 활동을 인지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102:6.10 (1125.5)} 유기체의 진화는 하나의 사실이다; 목적 있는, 곧 진보적인 진화는 진리이며 한편으로는 그것이 진화들의 늘-상승하는 성취가 모순되는 현상을 일관성 있게 만든다. 어떤 과학자가 자신이 선택한 과학에 있어서 점점 더 높게 진보되어 갈수록, 그는 최극 마음의 통치에 대한 조화우주 진리를 위하여 물질주의적 사실의 이론들을 점점 더 포기하게 될 것이다. 물질주의는 인간의 삶을 값싸게 만든다; 예수의 복음은 모든 필사자 각자를 엄청나게 증진시키고 숭고하게 고양시킨다. 필사자 실존은 인간의 위로 뻗음과 신성한 동시에 구원을 이루는 아래로 뻗음이 만나는 실체의 실현이라는 호기심을 자극하고 매혹적인 체험 속에 존재하듯이 시각화(視覺化) 되어야만 한다.

제 7 장. 신성한 것에 대한 확신감

102:7.1 (1126.1)

자아-실존적이신 우주 아버지는 또한 자아-설명적이시다; 모든 이성적 필사자 속에 실재적으로 살아 계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만일 하느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에 관하여 확신할 수 없으며; 아들관계는 아버지신분을 확실하게 만드는 유일한 체험이다. 그 우주는 어디에서나 변화를 겪는다. 변화하는 우주는 종속적인 우주이다; 그러한 창조는 최종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유한(有限)한 우주는 궁극자와 절대자에게 온통 종속된다. 우주와 하느님은 일치되지 않는다; 하나는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이다. 그 원인은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화가 없으며; 그 결과는 시간-공간이며 초월적이지만 영원히 변화하고 항상 성장한다.

102:7.2 (1126.2)

하느님은 한 분이고 그리고 우주 안에서 자아-원인이 되는 오직 유일한 사실이다. 그는 물체들과 존재들에 대한 전체 창조의 계층과 계획과 목적의 비밀이시다. 어디에서나 변화하는 우주는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법칙들, 변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기질에 의해서 규제되고 안정된다. 하느님의 사실, 신성한 법칙은 변함이 없으며; 하느님의 진리, 그가 우주와 가지는 관계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우주에 언제까지도 적응할 수 있는 상대적 계시이다.

102:7.3 (1126.3) 하느님 없이 종교를 창안하려는 사람들은 나무 없이 과일을 모으려는, 부모 없이 자녀를 가지려는 사람들과 같다. 너희는 원인이 없는 결과를 소유할 수 없으며; 오직 스스로 이신 이만이 원인이 없으시다. 종교적 체험의 사실은 하느님을 내포하며, 개인적 체험의 그러한 하느님은 반드시 개인적 신(神)이어야만 한다. 너희는 하나의 화학 공식에게 기도하거나, 수학 방정식에게 탄원하거나, 가상적 추측을 경배하거나, 가설을 믿고 속을 털어놓거나, 일련의 수행과정과 교통하거나, 추상개념을 섬기거나, 또는 어떤 법칙과 사랑에 넘치는 우애관계를 가질 수 없다.

102:7.4 (1126.4) 사실, 겉으로 보기에 종교적인 많은 특색들이 비종교적인 근원으로부터 자라날 수 있다. 사람은 지적으로 하느님을 부정하면서도 도덕적으로는 선하고 충실하며 효심이 있고 정직하며 심지어는 이상적일 수도 있다. 사람은 자신의 기본적인 영적 자연본성 위에 순전히 인본주의적인 많은 가지들을 접목시킬 수 있지만, 그러한

체험은 생존되는 가치들, 하느님을 알아감과 하느님께로 상승함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한 인간적 체험 속에는 영적인 열매들이 아니라 오직 사회적인 열매들만이 맺힌다. 생존을 위한 자양물이 마음과 영 두 가지의 기원적인 신성한 자질의 뿌리로부터 흡수됨에도 불구하고, 그 접목이 열매의 본성을 결정한다.

102:7.5 (1126.5) 종교의 지적인 특징은 확실성이다; 철학적 특징은 일관성이고; 사회적인 열매들은 사랑과 봉사이다.

102:7.6 (1126.6) 하느님을 아는 개별존재는 현대 시대의 미신, 전통 그리고 물질주의적 성향의 미로들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려움을 눈이 멀어 보지 못하거나 장애물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가 아니다. 그는 이러한 모든 방해물에 봉착해 왔고 그것들을 극복하였으며, 그것들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겨내었으며, 방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체험의 고지(高地)를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을 깊이 확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는 것에 대한 반대 주장들을 끌어 모으고 그 어려움을 증폭시키는 사람들의 그 다양성과 교묘함 때문에 확실성에서의 그 어떤

느낌들을 강력히 주장하기를 두려워한다. 결점을 찾아내거나, 질문을 던지거나, 반대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는 그 어떤 아무런 지성의 깊은 통찰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 질문에 대답하고 이들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는 마음의 눈부신 재기(才氣)가 요구된다; 신앙의 확실성은 그러한 모든 피상적인 논쟁들을 다루는 데에서 가장 위대한 기법이다.

^{102:7.7 (1127.1)} 만약에 과학이나 철학 또는 사회학이 참된 종교의 선지자들과 논쟁하는 데 있어서 감히 독단적인 상태가 된다면,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은 “나는 스스로 이신 이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것을 안다”고 하면서 개인적인 영적 체험의 확실성에 대한 더욱 선견지명이 있는 독단적인 태도로 그러한 인정할 수 없는 독단적인 태도에 답변해야만 한다. 만약에 신앙인의 개인적인 체험이 독단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된다면,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 신앙으로 태어난 이 아들은 도전할 수 없는 독단, 곧 자신의 우주 아버지에 대한 실재적 자녀관계를 선언하는 것으로 응답할 수도 있다.

102:7.8 (1127.2) 분별불가적인 유일한 실체, 절대는 감히 일관되게 독단적으로 될 수 있다. 독단적으로 되려는 자들이, 만약 일관성이 있다면, 머지않아 에너지에서의 절대자, 진리에서의 우주자, 그리고 사랑에서의 무한자의 품안으로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102:7.9 (1127.3) 만약에 조화우주 실체에 대한 비종교적 접근이 그것의 입증되지 않은 상태를 이유로 하여 신앙의 확실성에 도전하려고 생각한다면, 영을 체험한 그 사람은 과학의 사실들과 철학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것들에 대한 독단적 도전을 제기할 수 있다;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과학자와 철학자의 의식 속에 있는 체험들이다.

102:7.10 (1127.4) 우리는 모든 현존들 중에서 가장 불가피한, 모든 사실들 중에서 가장 실제적인, 모든 진리들 중에서 가장 살아있는, 모든 친구들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그리고 모든 가치들 중에서 가장 신성한 분이신 하느님을, 모든 우주 체험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 8 장. 종교의 징표들

102:8.1 (1127.5) 종교의 실체와 효력에 대한 가장 높은 증거는 인간 체험의 사실 속에 들어있다; 말하자면, 자연본성적으로 두려움이 많고 의심하며, 자아-보존의 강한 본능과 죽음 이후의 생존 갈망을 태생적으로 자질로서 부여받은 인간은, 자신의 신앙에 따라 하느님으로 부르고 있는 그 힘과 개인의 보호와 지도에 대한 그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장 깊은 관심을 기꺼이 전적으로 신뢰하려 한다. 그것이 모든 종교의 하나의 중심적 진리이다. 그 힘 또는 개인이 이러한 보호와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보답으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두 종교도 의견이 같지 않다; 사실 종교들은 모두 다소 의견이 다르다.

102:8.2 (1127.6) 진화적인 척도에서는 그 어떤 종교라도 지위에 관한 한, 도덕적 심판과 윤리적 기준에 의해 판결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 어떤 종교도 유형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사회적 도덕성과 윤리적 문화를 점점 더 북돋우고 그리고 또한 그것들에 의해 더욱 북돋아진다. 우리는 종교를 그에 수반되는 문명의 지위에 따라서 판결할 수는 없다; 한 문명에서의 종교가 갖는 순수성과 고결성에 따라서 실제적 본성을 추정하는 것이

더 좋았었다. 세상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종교적 스승들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영원한 실체를 믿는 구원하는 신앙을 실천하는 데에 세상의 지혜는 필요하지 않다.

102:8.3 (1127.7) 다양한 시대들의 종교들 속에 있는 차이는 도덕적 가치들과 윤리적 관계들 그리고 영적인 실체들에 대한 그의 상이한 이해에 따라서 그리고 실체에 대한 사람의 이해에 있어서의 차이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

102:8.4 (1127.8) 윤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내부적인 영적 그리고 종교적 발전의 진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영원한 사회적 또는 인종적 거울이다. 사람은 자신이 알았던 최상의 용어, 가장 심오한 관념들과 가장 높은 이상으로 항상 하느님을 생각해 왔다. 심지어는 역사적인 종교도 그것의 하느님 개념을 가장 높게 이해된 그것의 가치들로부터 항상 창조해 왔다. 지성을 가진 모든 창조체들은 자기가 아는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것이 되도록 하느님의 이름을 부여한다.

102:8.5 (1128.1) 종교는, 이성적이고 지적인 언어로 축소될 때, 언제든지 문명과 진화적 발전을 윤리적 문화와 도덕적

진보에 대한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감히 비판하였다.

102:8.6 (1128.2) 개인적 종교가 인간 도덕의 진화를 앞서는 반면, 제도적인 종교는 인간 종족들의 천천히 바뀌는 사회관례보다도 변함없이 뒤쳐져 있음이 기록되고 있으니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다. 조직화된 종교는 보수적으로 뒤쳐지게 된다는 것이 증명되어 왔다. 선지자들이 보통 종교적 발전에서 민족을 이끌었다; 신학자들은 보통 그들이 뒤돌아 제자리에 있도록 붙들어 왔다. 종교는, 내적인 곧 개인적 체험의 문제이며, 결코 종족들의 지적 진화보다 훨씬 멀리 앞서서 발전할 수는 없다.

102:8.7 (1128.3) 그러나 종교는 소위 기적이라 불리는 것들에 호소함으로써 결코 강화될 수 없다. 기적을 추구하는 것은 원시적인 마술의 종교들을 돌이켜 불러내는 것이다. 참된 종교는 그들이 내세우는 기적들과 함께 행해지는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리고 계시된 종교는 결코 기적을 권위에 대한 증거로 지목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는다. 종교는 언제까지나 그리고 항상 개인적 체험에 뿌리를 두고 기초를 둔다. 그리고 가장 높은 너희 종교인

예수의 삶은 바로 그러한 개인적 체험이었다: 그는 하느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 필사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육신으로의 한 번의 짧은 삶 동안,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을 발견한 사람이었으며, 한편 마찬가지로 바로 그 인간의 체험 속에서, 무한한 최극위의 완전한 혼의 충만한 만족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찾아 나시고 사람을 발견하는 하느님이 나타났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땅에서 살았던 삶—그것이 종교이며, 나아가 지금까지 네바돈의 우주에서 계시된 최고의 종교이다.

102:8.8 (1128.4)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103 편 종교적 체험의 실체

103:0.1 (1129.1) 사람의 참된 종교적 반응들 전체는 경배 보조자가 베푸는 초기 사명활동에 의해 지원을 받으며 또한 지혜 보조자에 의해 검열을 받는다. 사람의 첫 번째 초(超)마음 자질은 우주 창조 영의 성령 안에서 개인성 순환회로에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신성한 아들들의 증여 또는 조절자들의 우주적 증여가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에, 이 영향력은 윤리와 종교 그리고 영성에 대한 사람의 관점을 확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증여가

이루어진 뒤에는, 종교적 진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 수용력의 확대를 위하여, 해방시키는 진리의 영이 엄청난 기여를 한다.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서 진화가 진척됨에 따라, 생각 조절자들은 보다 높은 유형의 인간적 종교 통찰력 개발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하게 된다. 생각 조절자는 그것을 통하여 유한한 창조체가 한계가-없는 신(神), 우주 아버지에 대한 확실성과 신성을 신앙으로-어렴풋이 볼 수 있는 조화우주 창문이다.

103:0.2 (1129.2) 인간 종족들의 종교적 경향들은 타고난 것이다; 그것들은 우주적으로 현시되고 겉으로 보기에 자연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 원시적인 종교들은 그 유래에서 항상 진화적이다. 자연적인 종교 체험이 진보하기를 계속하면 그에 따라, 진리의 주기적인 계시가, 그것이 없었다면 행성 진화의 느리게-움직일, 그 과정을 마침표로 끊어준다.

103:0.3 (1129.3) 오늘날 유란시아에는 네 종류의 종교들이 있다:

103:0.4 (1129.4) 1. 자연적 또는 진화적 종교.

103:0.5 (1129.5) 2. 초자연적 또는 계시적 종교.

103:0.6 (1129.6) 3. 자연적 종교와 초자연적 종교가 다양하게 섞인, 실천적 또는 현재 종교.

103:0.7 (1129.7) 4. 철학적 종교들, 사람이 만들었거나 철학적으로 용의주도한 신학적 교리들과 이성으로 창출된 종교들.

제 1 장. 종교의 철학

103:1.1 (1129.8) 사회적 또는 인종적 집단 속에 이루어진 종교적 체험의 합일은 개별존재 속에 내주하는 하느님 단편(斷片)의 동일한 자연본성으로부터 도출된다. 다른 사람의 반영에 그의 사심-없는 관심을 사람 안에 기원시키게 하는 그것이 이 신성한 것이다. 그러나 개인성의 독특성—어떤 두 필사자도 똑같지 않음—때문에, 어떤 두 인간 존재도 자기들 마음속에 거주하는 신성(神性)을 갖는 영의 안내와 충동을 유사하게 해석할 수 없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 필사자들 집단이 영적인 합일을 체험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결코 철학적 획일성을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종교적 생각과 체험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의 이러한 다양성은 20세기의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종교에 대하여 500여 가지의 서로 다른 정의들을 내세웠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 있다. 실체

안에서, 각각의 인간 존재는 자기 안에 내주하는 하느님
영으로부터 발산되는 신성한 충동에 대한 자신만의
체험적 해석에 기초를 두고 종교를 정의한다. 따라서
그러한 해석은 독특할 수밖에 없고, 다른 모든 인간존재의
종교 철학과 전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103:1.2 (1130.1) 필사자가 동료 필사자의 종교 철학과 전적으로
동의할 때, 그러한 현상은 이 두 존재들이 철학적인 종교적
해석에 대한 자신들의 유사성과 관계된 문제들에 접하는
비슷한 종교적 체험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103:1.3 (1130.2) 너희의 종교가 개인적인 체험의 문제인 반면,
너희가 너희 종교적 삶을 자기중심적인—한정되어지고
이기적이며 반(反)사회적인—상태가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그 목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다른 종교적
체험들(다른 다양한 필사자들의 다양한 해석들)의 지식에
자신을 노출시켜야만 한다.

103:1.4 (1130.3) 종교가 처음에는 어떤 원시적인 믿음이고,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가치들에 대한 추구가 뒤따라 오는
것이라고 가정할 때, 합리주의는 오류를 범한다. 종교는
시원적으로 가치들에 대한 추구이며, 그 다음에 해석적인

믿음들에 대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사람들은 믿음들—해석들—에 대해서보다는 종교적인 가치들—목표들—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훨씬 쉽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하여 종교가 수백 가지의 모순되는 믿음들—신조들—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혼란된 형상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가치들과 목표들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또한 이것은 일정한 사람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들 대부분을 포기하거나 변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종교는 종교적 신념들에 있어서의 혁명적인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재한다. 신학은 종교를 산출하지 못한다; 신학적인 철학을 낳는 것은 종교이다.

103:1.5 (1130.4) 종교가 가치들에 대한 이해 위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의 종교적 체험의 신앙에 의해 정당화되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잘못된 것을 너무 깊이 믿어왔다는 것으로 종교가 무효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종교는 체험과 종교적 생각 위에 기초를 둔다; 즉 종교의 철학인 신학은 그 체험을 해석하기 위한 정직한 시도이다. 그러한 해석에서 비롯된 신념들은 옳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으며, 또는 진리와 실수의 혼합일 수도 있다.

103:1.6 (1130.5) 영적 가치들의 실현과 인지는 하나의 체험이며 그 체험은 초(超)관념적이다. 하느님-의식함으로 부르기로 우리가 작성한 이 "감각", "느낌", "직관", 또는 "체험"을 정의하는 데 채택할 수 있는 단어는, 그 어떤 인간 언어에도 없다. 사람 속에 거주하는 하느님의 영은 개인성 존재가 아니지만—조절자는 전(前)개인적 존재이다—이 는 가치를 제시하고, 신성(神性)의 향기를 발산하며, 가장 높고 무한한 감각에서 개인적이다. 만약에 하느님이 적어도 개인적이 아니라면, 그는 의식할 수 없으며, 그리고 의식이 없다면, 그러면 인간이하일 것이다.

제 2 장. 종교와 개별존재

103:2.1 (1130.6) 종교는 인간 마음속에서 기능을 발휘하며 인간 의식 속에 나타나기 전에 체험 속에서 실현되어 왔다. 어린아이는 출생을 체험하기에 앞서서 약 9개월 전부터 실존되었다. 그러나 종교의 "탄생"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단계적인 창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출생일"이 존재하게 된다. 너희는 만일 "다시 태어나지"—영으로 태어나지—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영적인 출생들 대부분은 영의 심한 고뇌를 수반하며 심리적 혼란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출생들 대부분이 “격렬한 산통”과 “분만”에 있어서의 다른 비정상적 상황들로 특징 지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또 다른 영적 출생들은, 비록 그 어떤 종교적인 발전도 의식적인 노력과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결심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는 하지만, 영적 체험의 증진으로 있는 최극 가치들에 대한 인지에서의 하나의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성장이다, 종교는 결코 소극적인 체험,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다. “종교의 탄생”이라고 불리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정신적 갈등, 감정적 억압, 그리고 기분적인 동요의 결과로서 일생에서 후기에 발생하는 종교적 에피소드들을 특징짓는 소위 변환 체험이라 불리는 그러한 사건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

103:2.2 (1131.1) 그러나 하늘에 계신 사랑 넘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의식(意識) 속에서 자라날 만큼 자신들의 부모들에 의해 그렇게 보살펴진 그러한 개인들은, 정신적 고비, 정서적 격변을 통해서만 하느님과의 동료관계에 대하여 그러한 의식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동료 필사자들을 흘려보아서는 안 된다.

103:2.3 (1131.2) 계시된 종교의 씨가 싹트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진화의 토양은 매우 일찍부터 사회의식을 기원시킨 도덕적 본성이다. 어린이의 도덕적 본성에 있어서 최초의 자극은 성욕이나 죄의식 또는 개인적인 자부심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의와 공정성 그리고 친절함을 향한 충동—어떤 사람의 이웃들에 대해 도움이 되는 사명활동—과 관련된다. 그리고 그러한 초기의 도덕적 각성이 성숙될 때, 모순과 격변 그리고 위기들로부터 비교적 속박을 받지 않는 종교적 삶의 단계적 발달이 발생한다.

103:2.4 (1131.3) 모든 인간 존재는 자신의 자아-탐구와 이타적 충동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을 매우 일찍부터 체험하며, 그리고 많은 경우 하느님-의식의 첫 체험은 그러한 도덕적 갈등들을 해결하는 과업에서 초인간적인 도움을 추구하는 결과로서 얻어질 수 있다.

103:2.5 (1131.4) 어린이의 심리 상태는 본능적으로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이다. 수많은 필사자들이 부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훈련되었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긍정적이라고 말해질 때, 그의 도덕적 충동을 언급하는

것이며 그렇게 마음의 힘이 창발하는 것은 그에게 생각 조절자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것이다.

103:2.6 (1131.5) 잘못된 가르침이 없으면, 정상적인 어린이의 마음은, 종교적인 의식의 창발에 따라, 도덕적인 정의와 사회적인 사명활동을 향하여, 부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죄와 범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긍정적으로 움직인다. 종교 체험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갈등은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필연적인 결정과 수고 그리고 인간 의지의 기능은 반드시 따라온다.

103:2.7 (1131.6) 도덕적인 선택은 대개 다소간의 도덕적인 갈등을 동반한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이러한 최초의 갈등은 이기주의의 강한 충동과 이타주의의 자극 사이에 존재한다. 생각 조절자는 자기본위적인 동기를 갖는 개인성 가치들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행복이라는 목표와 하늘의 왕국의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으로서 이타적인 충동을 조금 더 높게 인정한다.

103:2.8 (1131.7) 도덕적 존재가 이기적으로 되려는 충동에 직면하여 사심-없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였을 때, 그것은 원시적인 종교적 체험이다. 어떤 동물도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없다; 그런 결정은 인간적이며 또한 종교적이다. 그것은 하느님-의식함의 사실을 포용하며 사회적인 봉사의 충동, 사람이 형제신분을 이루는 기초를 보여준다. 마음이 자유의지의 행동에 의해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선택하였을 때, 그러한 결정이 종교 체험을 구성한다.

103:2.9 (1131.8) 그러나 어린이가 도덕적인 역량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발달되어 이타적인 봉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 전에, 그에게는 이미 하나의 강력하고도 잘 통합된 이기주의적 본성이 개발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적 상황이 “높은” 본성과 “낮은” 본성 사이, “죄를 지닌 옛 사람”과 은혜의 “새로운 본성” 사이에 투쟁이 있다는 이론을 일으키게 한다. 정상적인 어린이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욱 복되다”는 것을 삶 속에서 매우 일찍부터 배우기 시작한다.

103:2.10 (1131.9) 사람은 자아-봉사하려는 충동을, 자기—자신으로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는 자신의 의리를, 자기 자신의 밖으로부터의 어떤 영향력—하느님—으로 이타적이 되도록,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기울어진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은 정말로 사실인데,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이타적 욕구들은 내주 하는 생각 조절자의 인도에서 실재적으로 기원되고, 이 조절자는 하느님의 단편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영 감시자의 충동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이타적이 되려는, 동료-창조체를 염두에 두는, 그러한 충동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것은 어린이의 마음이 겪는 초기의 근본적인 체험이다. 자라나는 어린이가 개인성 통일을 이루지 못할 때, 이타적인 충동은 자아의 복지에 심각한 상처를 입힐 만큼 과도하게 발전될 수도 있다. 잘못된 인도된 양심은 많은 갈등과 염려와 슬픔 그리고 끝없는 인간적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제 3 장. 종교와 인종

^{103:3.1 (1132.1)} 영과 꿈 그리고 다양한 다른 미신들에 대한 믿음이 모두 원시적인 종교들의 진화적인 기원 속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반면, 너희는 씨족 또는 부족이 가진 단결의 영이 끼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집단적인 관계 속에는 초기 인간 마음의 도덕적인 본성 속에 있는 자기본위적-이타적 갈등에 도전을 주는, 엄격한 사회적 상황이 존재하였다. 영들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원시적인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종교를 씨족에게 중심을 두고 있다. 때가 이르면, 그러한 종교들은 개인성구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처음에는 동물들로,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초인간으로 또는 하느님으로 된다. 토템적인 믿음도 갖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부시맨 같은 열등한 종족들도 자아-이익과 집단-이익 사이의 차이, 세속적인 가치들과 신성한 가치들 사이의 기초적인 차이를 인식한다. 그러나 사회적인 집단은 종교 체험의 근원이 아니다. 사람의 초기 종교에 대한 이러한 모든 원시적 공헌들의 영향에 상관없이, 참된 종교적 충동은, 의지로 하여금 사심-없는 상태가 되도록 활성화시키는 순전한 영 현존들 속에 그 기원을 가진다는 것이 여전히 사실로 남아있다.

103:3.2 (1132.2) 후대의 종교는 자연적인 경이로움과 기적들, 미(未)개인적 초자연성에 대한 원시적인 믿음 안에서 예시된다. 그러나 진화하는 종교는, 개별존재가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개인적인 희생을 해야만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보다 행복하고, 보다 낮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고 곧 요구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종교는 하느님과 사람에 대한 봉사가 되도록 되어 있다.

103:3.3 (1132.3) 종교는 사람의 환경을 변경시키도록 계획되어 있지만, 오늘날 필사자들 속에서 발견되는 그 종교의 대부분은 이것을 행하는 데에서 어떤 도움도 없는 것이 되어왔다. 환경이 너무나도 자주 종교를 지배해 왔다.

103:3.4 (1132.4) 모든 시대들의 종교 속에서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체험은, 신학적 독단론이나 혹은 철학적 이론에 관한 사고(思考)가 아니라 도덕적 가치들과 사회적 의미들에 관한 느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마술의 요소가 도덕의 개념에 의해 대체되면서 그에 따라 종교는 순조롭게 진화한다.

103:3.5 (1132.5) 사람은 신비의 힘, 마술, 자연 경배, 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동물 경배의 미신들을 통하여 다양한 예식으로 진화하였는데, 개별존재의 종교적 태도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그 씨족의 집단적 반응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예식들은 부족 신앙들로 초점화구현 되고 형태화 되었으며, 결국에는 이 두려움들과 신앙들이 하느님들로 개인성구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종교적 진화들 속에는 도덕적인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 속에 있는 하느님에 대한 충동은 항상 효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영향력—하나는 인간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성한—은 시대들의 변화 속에서 종교가 살아남도록 보장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수많은 파괴적 경향들과 악의적인 반목에 의해서 너무나도 자주 사멸될 위기에 처했다.

제 4 장. 영적 교제

^{103:4,1 (1133.1)} 사회적 행사와 종교적 모임의 특징적인 차이점은, 종교적인 것이 세속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교제의 분위기에 의해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적 관계적-연합은 이러한 방법으로 신성한 것과 친교를 나누는 느낌을 창출하며, 이것이 집단적 경배의 시발점이다. 공동 식사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교제에 있어서 가장 초기적인 유형이었으며, 그래서 초기의 종교들은 예식으로 바친 희생 제물의 일부분을 그 예식에 참여한 자들이 반드시 먹도록 제공하였던 것이다. 심지어는 그리스도교에서도 주님의 만찬이 이러한 교제 형태를 내포하고 있다. 그 교제의 분위기는 자아를-탐구하는 자기와 내주 하는 영 감시자의 이타적 충동과의 갈등에 있어서 산뜻하고도 위안이 되는 휴식기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것은 참된 경배—사람의 형제신분의 창발로
결국 생겨난 하느님 현존의 실천 관행—의 전주곡이다.

103:4.2 (1133.2) 원시인이 자신의 하느님과의 교제가 이미
단절되었음을 느낄 때, 그는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다정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어떤 종류의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방법에 의지하였다. 정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진리를 발견하도록 인도하였으며,
진리가 이상을 증강시켰고, 이것이 개별 종교인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안겨주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이상들은
등비수열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그것들에 맞추어
생활하는 우리의 능력은 오직 등차수열로 증강되기
때문이다.

103:4.3 (1133.3) 죄의식(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은 영적 교제의
단절로부터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도덕적인
타락으로부터 올 수도 있다. 그러한 궁지로부터의 탈출은
오직 어떤 사람의 가장 높은 도덕적 이상들이 반드시
하느님의 뜻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에 대한 실현을
통하여 두루 가능하다. 사람은 자신의 가장 높은 이상들에

맞추어 살 수는 없지만, 하느님을 발견하려는 자신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고 점점 더 그를 닮아갈 수 있다.

^{103:4.4 (1133.4)} 예수는 희생 제물과 죄 값에 대한 모든 예식들을 제거하셨다. 그는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임을 선언함으로써 즉: 창조체-창조자 관계를 자녀-부모 기초 위에 놓음으로써 이러한 모든 허구적인 죄의식의 근본과 우주에서의 고독감을 파괴하셨다. 하느님은 자신의 필사자 아들과 딸들에게 사랑 넘치는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한 긴밀한 가족 관계에 맞지 않는 모든 예식들은 언제까지나 폐기되었다.

^{103:4.5 (1133.5)} 아버지 하느님은 실재적 덕목이나 가치성의 기초 위에서가 아니라, 그 자녀의 동기—창조체의 목적과 의도—를 인식하여 사람을 자기 자녀로서 다룬다. 그 관계는 부모-자녀 관계적-연합의 하나이며 신성한 사랑에 의해 활성화된다.

제 5 장. 이상의 기원

^{103:5.1 (1133.6)} 주로 감정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유래되는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 의무에 대한 감각은 초기의 진화적인 마음에 의해서 기원된다. 더 많은 사회적 봉사의 긍정적인

충동과 이타주의의 이상주의가 인간 마음속에 내주 하는
신성한 영의 직접적인 충동으로부터 도출된다.

103:5.2 (1133.7)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자신의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어떤 것을 부인하려는 충동—의
관념-이상은 처음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원시인은
자신에게 매우 가까운 자들, 자신에게 친절한 자들만을
이웃으로 간주한다; 종교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어떤
사람의 이웃은 씨족, 부족, 국가를 포용하는 개념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는 인간성 전체,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도 사랑해야 하는 정도까지
포용하도록 이웃에 대한 범위를 확대시키셨다. 그리고
모든 정상적인 인간 존재들 속에는 이 가르침이
도덕이라고—옳다고—그에게 말해주는 무언가가 있다.
이러한 이상을 거의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옳다고 시인한다.

103:5.3 (1134.1) 모든 인간들은 이타적이고 사심-없이 되고자하는
이러한 보편적인 인간적 충동을 인지한다.
인본주의자들은 이러한 충동의 기원이 물질적인 마음의
자연적인 작용이라고 설명한다; 종교인들은 필사자

마음의 정말로 사심-없는 충동이 생각 조절자라는 내부의 영의 인도에 반응하는 것임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한다.

103:5.4 (1134.2) 그러나 자기-의지와 자아가-아닌-다른-의지 사이의 이들 초기 갈등들에서의 사람의 해석은, 항상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잘 통합된 개인성만이, 싹트기 시작한 사회의식과 자기 열망에 대한 여러 형태의 다툼을 중재할 수 있다. 자아는 자신의 이웃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갖고 있다. 어느 쪽도 개별존재의 관심과 봉사를 배타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 인간 죄의식에서의 가장 초기 유형에 기원을 준다.

103:5.5 (1134.3) 인간의 행복은 자아의 자기 욕망과 보다 높은 자아(신성한 영)의 이타적 충동이 집대성하고 감독하는 개인성의 통합된 의지에 의해서 조화-협동되고 화해될 때에만 성취된다. 진화적인 사람의 마음은, 영적 통찰력—진정한 종교적 반영 작용—에 입각한 사심-없는 충동의 도덕적 성장과 감정적 충동들의 자연적인 확대 사이의 싸움을 중재하는 복잡한 문제에 항상 봉착해 있다.

103:5.6 (1134.4) 자아를 위한 그리고 수많은 다른 자아들을 위한 균등한 유익을 보장하려는 시도는, 시간-공간 틀 안에서는 항상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한다. 영원한 생명을 가정한다면 그러한 반목들이 해결될 수 있지만, 한 번의 짧은 삶 속에서는 그들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예수는 그러한 모순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잃게 될 것이지만, 왕국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찾게 될 것이다.”

103:5.7 (1134.5)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하느님과-같음이 되고자 애쓰는 것은—죽음 이전과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노력이다. 죽음 이후의 삶은 근본적인 면에서 볼 때 필사자 실존의 상태와 어떤 차이도 없다. 이 일생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것들은 미래 일생의 증진에 직접 기여한다. 실제 종교는, 자연적 죽음의 관문을 거쳐 통과한 결과로서 사람에게 증여되는 고귀한 성격에서의 모든 미덕을 가지리라는 헛된 희망을 복돋음으로서 일어나는 도덕적 태만과 영적 게으름을 조장하지 않는다. 참된 종교는 필사자가 일생을 빌려 사는 동안 진보하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들을 얹잡아보지 않는다. 모든 필사자의

소득은 불멸적 생존 체험에서 첫 단계들을 강화하는 데에 직접 기여하는 것이다.

103:5.8 (1134.6) 인간의 모든 이타적 충동들이 단지 자신의 자연적인 집단 본능에 불과하다고 배웠을 때 그것은 인간의 이상주의에 치명적이다. 그러나 자신의 혼의 이러한 보다 높은 충동들이 자신의 필사자 마음속에 내주하는 영적 세력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배울 때 그는 고상하게 되고 크게 기세를 얻는다.

103:5.9 (1134.7) 인간은 영원하고 신성한 어떤 존재가 자기 속에 살면서 애쓰고 있음을 일단 충만하게 깨닫게 되면, 그것이 사람을 그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그 자신을 너머서 멀리 높이 들어 올려주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상들이 초인간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살아있는 신앙이, 우리들이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유효하게 하고, 우리의 이타적인 신념들, 사람의 형제신분에 대한 느낌을 현실로 만든다.

103:5.10 (1134.8) 사람은, 그 자신의 영적 권역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사람에게 비록 죽음이란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능이신 하느님의 위대하고 준엄한

통치권 밑에서 힘도 없이 어떤 도움도 없는 노예가 아니며 더구나 기계론자의 조화우주 결정론의 어떤 도움도 없는 숙명의 희생자도 아니다. 사람은 최고의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영원한 운명의 고안건축가이다.

103:5.11 (1135.1) 그러나 인간은 압력에 의해서 구원되거나 고귀하게 되지 않는다. 영의 성장은 진화하는 혼속으로부터 솟아난다. 압력은 개인성을 일그러지게 만들지 모르지만, 결코 성장을 도모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교육적인 압력도 오직 부정적인 유익을 줄 수 있을 뿐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비참한 체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영적인 성장은 모든 외부적 압력들이 최소화 될 때 극대화된다.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해방이 있다.” 인간은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 그리고 국가의 압력이 최소화 될 때 최고로 발달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보적 공동체에서 가정, 사회 기관, 교회 그리고 국가가 나설 자리가 없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103:5.12 (1135.2) 사회의 종교 집단에 속한 한 구성원이 그러한 집단의 요구들에 순응할 때, 그는 종교적 신념으로 이루어진 진리들과 종교 체험으로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한 자기 자신의 개인적 해석을 충만하게 표현함에 있어서 종교적인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만 한다. 종교 집단의 안전은 신학적인 획일성이 아니라 영적인 합일에 달려있다. 종교 집단은 "자유사상가"가 되지 않고도 자유롭게 생각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 어떤 교회든지 살아 계신 하느님께 경배하고, 사람의 형제신분을 정당화하며, 그 구성원들로부터 교리로 인한 모든 압력을 과감하게 제거할 때 위대한 희망이 거기에 존재한다.

제 6 장. 철학적 조화-협동

103:6.1 (1135.3) 신학은 인간 영의 행동과 반응에 대한 연구이다; 결코 하나의 학문이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그 개인적 표현에서는 심리학과, 체계적인 묘사에서는 철학과 어느 정도 병합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신학은 항상 너의 종교에 대한 연구이다; 다른 사람의 종교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이다.

103:6.2 (1135.4) 인간이 외부로부터 그의 우주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일에 접근할 때, 그는 다양한 물리 과학을 만들어낸다; 그가 자기 자신과 우주에 대한 연구를

내부로부터 접근할 때, 그는 신학과 형이상학을 창출하게 된다. 사물과 존재로 이루어진 우주에 접근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정반대되는 큰길에서의 발견과 가르침 사이에서만 처음에 나타나도록 예정된 많은 불일치들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으로, 철학이라는 후일의 기법이 발달한다.

103:6.3 (1135.5) 종교는 영적인 관점, 인간 체험의 내면성에서의 깨달음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의 영적 본성은 우주의 밖을 안으로 돌려놓는 기회를 그에게 잘 제공해준다. 그러므로 개인성 체험의 내면성으로부터 배타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모든 창조가 자연본성에서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말이다.

103:6.4 (1135.6) 인간이 자신의 연관된 마음 인식과 물리적 감각들로 이루어진 물질적 자질들을 통하여 우주를 분석적으로 검열할 때, 조화우주는 기계적이고 에너지-물질로 보인다. 실체를 연구하는 그러한 기법은 우주의 안을 바깥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103:6.5 (1135.7) 우주에 대한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철학 개념은 물질주의 또는 영성주의의 가설 위에 세워질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사고(思考) 체계들은, 우주적으로 적용될 때, 왜곡된 상태로 조화우주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전자는 안에서 밖으로 돌려놓은 우주와 접촉하고, 후자는 밖에서 안으로 돌려진 우주의 자연본성을 파악한다. 그래서 과학이든 종교든 독립된 상태에서 그 자체로는 그리고 그 스스로는 인간의 철학과 신성한 계시의 조명의 인도함 없이 우주적 진리들과 관계들에 대한 적절한 납득을 얻을 수가 결코 없다.

103:6.6 (1136.1) 인간의 내부 영은 그것의 표현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항상 마음의 심리 작용과 기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물질적 실체에 대한 인간의 외부적 체험은 체험하는 개인성의 마음의식에 입각한다. 그러므로 영적인 체험과 물질적인 체험, 내부적인 체험과 외부적인 체험은 항상 마음 기능과 상관관계되며, 그들의 의식적 실현에 따라 그렇게 마음 활동에 조건을 받는다.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서 물질을 체험한다; 혼(魂) 안에서 영적인 실체를 체험하지만 이러한 체험은 그의 마음속에서 인식하게 된다. 지성은 인간 체험 전체를 조화시키는 것이고 항상-제시되어 있는 조정 장치이며 본질특성권한을 부여하는 존재이다. 에너지-물체들과 영

가치들 두 가지는 모두 의식이라는 마음 매개자를 통한 해석에 의해서 채색된다.

103:6.7 (1136.2) 과학과 종교 사이의 보다 조화된 조화-협동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겪는 어려움은 물질들과 존재들의 모론시아 세계에 개재하는 권역에 대한 너희의 철저한 무지에서 기인된다. 지역우주는 실체 현시활동에 있어서 세 가지의 정도 또는 단계들 즉: 물질과 모론시아 그리고 영으로 되어 있다. 모론시아적 견지의 접근은 물질적인 과학의 발견과 종교 마음의 활동 사이에 있는 모든 차이를 없앤다. 이성은 학문의 낯익 기법이다; 신앙은 종교의 통찰 기법이다; 모타는 모론시아 차원의 기법이다. 모타는 불충분한 성장을 보정하기 시작하는 초물질적 실체 감수성인데, 그것의 실체인 지식-이성과 그것의 본질인 신앙-통찰력을 위해 소유한다. 모타는 물질적인 개인성들에 의해 달성될 수 없는 다른 실체 인식에 대한 초(超)철학적 화해이다; 부분적으로는 육신의 물질적 생명으로 살아남는 체험에 입각한다. 그러나 많은 인간들은 과학과 종교의 폭넓게 분리된 권역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화시키는 어떤 방법을 갖는 바람직한 상태를 알고 있다; 형이상학은 잘 이해된 이러한 틈을

연결시키려는 인간의 무익한 시도의 결과이다. 그러나 인간의 형이상학은 계몽보다는 더 많은 혼란을 체험해 왔다. 형이상학은 인간이 선의(善意)로 하였음을 나타내지만 모론시아의 모타의 부재(不在)를 보상하려는 무익한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103:6.8 (1136.3) 형이상학은 실패를 증명해 왔으며; 인간은 모타를 감지할 수 없다. 계시는 물질세계 안에 있는 모타의 진리에 대한 민감성의 부재를 보상할 수 있는 유일한 기법이다. 계시는 진화적인 구체에서 이성에 의해 발달된 형이상학의 혼란을 엄중하게 규명한다.

103:6.9 (1136.4) 과학은 인간이 자신의 물리적인 환경, 에너지-물질세계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다; 종교는 영적인 가치들로 구성된 조화우주에 대한 인간의 체험이다; 철학은 폭넓게 분리된 이러한 개념들이 발견한 것들을, 조화우주를 향한 정당하면서도 조화된 태도와 같은 어떤 것이 되도록 조직하고 상관관계 시키려는 인간 마음의 노력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계시에 의해서 규명되는 철학은 모타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모타—형이상학—를

대신하는 인간의 이성의 좌절과 실패라는 현존 속에서 만족스럽게 활동한다.

103:6.10 (1136.5) 초기의 인간은 에너지 차원과 영의 차원을 구분하지 않았다. 의지적인 것으로부터 수학적인 것을 분리시키려고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보라색 인종과 그들의 안드-사람 후손들이었다. 문명화된 인간은 무생물과 생물 사이를 구분시킨 초기 그리스인들과 수메르인 들의 발자취를 점점 더 많이 따라갔다. 그리고 문명이 진보됨에 따라, 철학은 영 개념과 에너지 개념 사이의 계속 넓어지는 하구(河口)에 다리를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공간의 시간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들은 최극자 안에서 일치된다.

103:6.11 (1137.1) 상상력과 추측이 과학의 영역의 확장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과학은 언제나 이성에 기초를 두어야만 한다. 이성이 안정시키는 영향력이며 도움을 주는 시녀(侍女)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언제까지나 신앙에 의존한다. 그리고 자연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서의 둘 모두의 현상을 잘못되게 해석한 것, 그렇게 그릇되게

과학과 종교라 불리는 것들이 항상 있어왔고 또 언제까지나 있을 것이다.

103:6.12 (1137.2) 과학에 대한 인간의 미완성 파악과 종교에 대한 연약한 이해력 그리고 형이상학에 대한 미성숙한 시도들로부터, 그는 철학이라는 자신의 공식들을 형성해 보려고 시도해 왔다. 그리고 현대인은 물질과 영 사이를 연결하는 자신의 가장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형이상학적 관계를 결렬시키지만 았았다면, 물질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모론시아 만(灣)에 다리를 놓으려는 형이상학의 실패가 없었다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우주에 대한 훌륭하고도 매력 있는 철학을 세웠을 것임에 틀림없다. 필사 사람은 모론시아 마음과 물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계시는 우주에 대한 논리적 철학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우주 안에 있는 자신의 확실하고 안정된 장소에 대한 만족스러운 납득에 도달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그토록 다급하게 필요한 개념적 자료에 있어서의 이러한 결핍을 보상할 수 있는 유일한 기법이다.

103:6.13 (1137.3) 계시는 모론시아 만에 다리를 놓는 진화적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다. 모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신앙과 이성 하나는 논리적인 우주를 상상할 수 없고 그려볼 수 없다. 모타의 통찰력이 없으면, 필사 사람은 물질적인 세계의 현상들 속에서 선과 사랑 그리고 진리를 식별할 수 없다.

103:6.14 (1137.4) 인간의 철학이 물질세계를 향하여 과도하게 기울어질 때, 그것은 합리주의적 또는 자연주의적 상태가 된다. 철학이 두드러지게 영적인 차원으로 기울어질 때, 그것은 이상주의적 또는 심지어 신비적 상태가 된다. 철학이 형이상학에 기댈 정도의 불행한 사태가 되면 그것은 반드시 회의론적인, 혼란된 상태가 된다. 지나간 시대들에 있어서 대부분의 인간의 지식과 지적 평가들은 이러한 세 가지의 왜곡된 인식에 빠져들었다. 철학은 그러한 실체에 대한 해석을 논리의 직선 모양으로 무작정 내비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실체의 타원형 대칭성과, 그리고 모든 관계 개념의 본질적 곡률(曲率)로서 다루는 데에서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

103:6.15 (1137.5) 필사 사람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철학은 과학의 이성과 종교의 신앙 그리고 계시에 의해서 제공되는 진리 통찰 위에 논리적으로 기초를 두어야만 한다. 인간은 충분한 형이상학을 발전시키지 못한 자신의 실패와 모론시아의 모타를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을 위하여 이러한 연합에 의해 어느 정도 보상을 이룩할 수 있다.

제 7 장. 과학과 종교

103:7.1 (1137.6) 과학은 이성에 의해 지속되고, 종교는 신앙에 의해 지속된다. 신앙은, 이성에 입각하지는 않더라도 이성적이다; 논리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논리에 의해 촉진된다. 신앙은 이상적인 철학에 의해서조차도 조성될 수 없으며; 그것은 정말로 과학과 함께 그러한 철학의 바로 그 근원이다. 인간의 종교적 통찰력인 신앙은 오직 계시에 의해서만 분명하게 지시를 받는데, 영이신 하느님의 영적인 조절자 현존과 함께 오직 개인적인 인간 체험에 의해서만 분명하게 증진될 수 있다.

103:7.2 (1137.7) 참된 구원은 필사자 마음을 사물 정체화구현에서 부터 모론시아 연락의 영역을 통과하여 영적인

상관관계의 높은 우주 지위에 이르게 하는 신성한 진화의 기법이다. 그리고 물질적인 직관적 본능이 이 세상의 진화 속에서 도리에 맞는 지식의 출현보다 앞서는 것처럼, 영적인 직관적 통찰의 현시활동이 천상(天上)의 진화에 대한 숭고한 계획, 일시적 존재인 인간의 잠재를 변환시켜서 파라다이스의 최종자인 영원한 인간의 실재성과 신성을 이룩하는 일에 있어서 나중에 나타나는 모론시아 그리고 영의 이성과 체험의 전조(前兆)가 된다.

103:7.3 (1138.1) 그러나 상승하는 사람이 하느님 체험을 위하여 안쪽으로 그리고 파라다이스 쪽으로 도달함에 따라, 마찬가지로 그는 물질적 조화우주를 납득하는 하나의 에너지를 위하여 바깥쪽으로 그리고 공간 쪽으로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의 진보는 사람의 세속적 일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람의 우주와 초우주 상승 체험은, 에너지 변질과 물질 변환의 연구와 그 어떤 작은 차이도 없게 될 것이다. 하느님은 영이지만, 신(神)은 합일이며, 신(神)의 합일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영적 가치들을 포용할 뿐만 아니라 우주통제자와 파라다이스 섬의 에너지 사실들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우주 실체의 이들 두 현상은 공동

행위자의 마음 관계들 안에서 완전하게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리고 최극존재의 창발하는 신(神) 안에 있는 유한 차원 위에서 통합된다.

103:7.4 (1138.2) 체험적 철학의 중재에 의한 과학적 태도와 종교적 통찰력의 연합은 인간의 긴 파라다이스-상승 체험의 일부이다. 수학의 추정과 통찰력의 확실성은 최극자의 최대 달성에 약간 못 미치는 모든 체험 차원 위에서 항상, 마음 논리적 속성의 조화하는 기능을 요구할 것이다.

103:7.5 (1138.3) 그러나 논리는 과학의 발견들과 종교의 통찰들을 조화시키는 데 있어서, 개인성의 과학적인 측면과 종교적인 측면 둘 모두가 진리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면, 도달할 수도 있는 결론에 상관없이, 진리가 인도할 수 있는 어느 곳이나 따라가기를 진지하게 바라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103:7.6 (1138.4) 논리는 철학의 기법, 그것의 표현 방법이다. 참된 과학의 권역 안에서, 이성은 진실한 논리에 항상 복종할 수 있다; 참된 종교의 권역 안에서, 신앙은 내부 관점의 바탕에서 볼 때 항상 논리적이며, 설사 그러한 신앙이 과학적 접근에서 안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논리적이다. 외부로부터 안을 들여다보면, 우주는 물질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안에서 밖으로 보면, 동일한 그 우주는 온통 영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성(이성)은 물질적인 깨달음으로부터 자라나고 신앙은 영적인 깨달음으로부터 자라나지만, 논리는 계시에 의해 강화된 철학의 중재를 통하여 안쪽으로의 관점과 바깥쪽으로의 관점 둘 모두를 확립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여 과학과 종교의 안정에 효력을 미친다. 그래서 철학의 논리와 평범하게 접촉함을 통하여 과학과 종교는 서로에 대하여 점점 더 관대하게 되고 회의(懷疑)가 점점 줄어든다.

103:7.7 (1138.5) 발달하는 과학과 종교 둘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탐색과 담대한 자아-비판, 진화 지위에 있어서의 미완성에 대한 더 많은 깨달음이다. 과학과 종교의 스승들은 양쪽 모두 흔히 너무나도 자아-확신적이고 독단적이다. 과학과 종교는 오직 그들이 지닌 사실들에 대해서만 자아-비판적이 될 수 있다. 사실들의 무대에서 떠나는 순간, 이성(이성)은 물러나든지 아니면 거짓 논리 속으로 급속도로 퇴화한다.

103:7.8 (1138.6) 진리—조화우주 관계들, 우주 사실들, 그리고 영적인 가치들에 대한 납득—은 진리의 영의 사명활동을 통하여 가장 잘 소유될 수 있으며 계시에 의해서 가장 잘 비판될 수 있다. 그러나 계시는 과학과 종교 중 어떤 것도 창출하지 않는다; 계시의 기능은 과학과 종교를 실체에 대한 진리로 조화-협동시키는 것이다. 계시가 없을 때 또는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파악하지 못할 때에는, 필사 사람은, 항상, 형이상학에 대한 자신의 쓸데없는 몸짓에 호소하는데, 그것은 진리의 계시 또는 모론시아 개인성의 모타에 대한 유일한 인간적 대응품이다.

103:7.9 (1139.1) 물질적 세계의 과학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고 어느 정도는 지배할 수 있게 한다. 영적인 체험의 종교는, 과학 시대의 문명의 복잡성 속에서 인간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형제우애관계 충동의 근원이다. 형이상학이, 그리고 보다 확실하게는 계시가, 과학과 종교의 발견들을 위한 일반적인 접합 토대를 제공하며,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여금 이러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상호 의존적인 생각 권역이 과학적인 안정성과 종교적인 확실성의 잘 균형 잡힌 철학에 이르도록 논리적으로 관련시키는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

103:7.10 (1139.2) 필사자 상태에 있어서는, 아무 것도 절대적으로 증명될 수 없으며; 과학과 종교 모두 가정들 위에 입각한다. 모론시아 차원에서는, 과학과 종교의 가정들이 모타 논리에 의해 부분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최고의 지위인 영적 차원에서는, 실체에 대한 그리고 실체와의 실재적 체험 앞에서 제한적인 증명의 필요성이 점차 사라지지만;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증명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유한적 상태를 크게 뛰어넘는 것들이 존재한다.

103:7.11 (1139.3) 인간 생각의 모든 분야들은, 사람의 마음 자질이 갖는 구조적 실체 감수성에 의해,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받아들여지는 어떤 가정들에 입각한다. 과학은 세 가지 즉: 물질과 동작과 생명에 대한 실체를 가정함으로써 추론 활동의 그 자랑스러운 생애를 시작한다. 종교는 세 가지 즉: 마음과 영 그리고 우주—최극존재—의 정당성에 대한 가정에서 출발한다.

103:7.12 (1139.4) 과학은 공간 속에서 시간의 에너지와 물질을 다루는, 수학의 생각 권역이 된다. 종교는 유한하고 현세적인 영뿐만 아니라 영원과 최극위의 영(靈)도 다루려고 가정한다. 우주 인식의 이들 두 극단들은 오직

모타 속에서의 긴 체험을 통해서만 기원, 기능, 관계, 실체, 그리고 운명에 대한 비슷한 해석을 산출할 수 있다. 에너지-영 분산에 대한 최고의 조화로움은 일곱 주(主) 영들의 회로연결 안에 있다; 그것으로부터의 최초 통일은 최극자의 신(神) 속에 있다; 그것으로부터의 최종자 합일은 스스로 이신 이,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무한성 안에 있다.

103:7.13 (1139.5) 이성(Reason)은 에너지와 물질의 물리적 세계 안에서의 그리고 그 세계와의 체험에 관한 인식의 결정을 인식하는 행동이다. 신앙(Faith)은 영적인 의식(意識)—다른 인간적 증거가 불가능한 어떤 것—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 활동이다. 논리(Logic)는 신앙과 이성의 합일이 이루는 종합적인 진리-추구 진행이며, 필사 존재들의 구조적인 마음 자질들, 사물들과 의미들과 가치들에 대한 타고난 인식에 기초한다.

103:7.14 (1139.6) 생각 조절자(Mental Adjuster)의 현존 안에 영적 실체에 대한 실제 증거가 있지만, 이 현존의 정당성은 외부 세계에 실증되는 것이 아니며, 하느님의 내주하심을 그렇게 체험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조절자에 대한 인식은 진리에 대한

지적 수용과 선(善)에 대한 초(超)마음 인식 그리고 사랑하고자 하는 개인성 동기유발에 기초를 둔다.

103:7.15 (1139.7) 과학은 물질적 세계를 발견하고, 종교는 그것을 평가하며, 철학은 과학의 물질적 관점을 종교의 영적 개념과 조화-협동시키면서 그 의미 해석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역사는 그 안에서 과학과 종교가 결코 충만하게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다.

제 8 장. 철학과 종교

103:8.1 (1140.1) 비록 과학과 철학이 그들의 이성과 논리에 의해 하느님의 존재 가능성을 가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오직 개인적인 종교 체험만이 영의 인도를 받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러한 최극 그리고 개인적 신(神)에 대한 확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느님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철학적 가정은 살아있는 진리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 실현 기법에 의해서 하나의 종교적 실체가 된다.

103:8.2 (1140.2) 하느님의 확실성 체험에 관한 혼동은 분리된 개별존재들과 서로 다른 인간 종족들에 의해 얻어진 그 체험에 대한 상이한 해석과 그 관계들로부터 발생된다.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할 수 있지만,

하느님에 관하여 강연하는 것은 지적이고 철학적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로 나뉘고 때로는 혼란스럽게 잘못되기도 한다.

103:8.3 (1140.3) 선하고 고귀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할 수도 있지만, 결혼에 이른 사랑의 심리학에 관한 필기시험에서 만족스럽게 통과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또 어떤 남자는, 자기 배우자에게 거의 또는 전혀 사랑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시험에서 가장 만족스럽게 통과될 수도 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의 참된 자연본성을 살피는 통찰력에서의 불완전성은 그의 사랑의 실체나 혹은 진실성을 조금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103:8.4 (1140.4) 만약에 너희가 참으로 하느님을 사랑한다면—신앙으로 그를 알고 그를 사랑한다면—그러한 체험의 실체가, 과학의 의심하는 암시, 논리의 트집 잡기, 철학의 가설, 아니면 하느님 없는 종교를 창조하려는, 좋은-의미를 지닌 혼들의 영리한 제안들 때문에, 그 어떤 면에서도 줄어들거나 손상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

103:8.5 (1140.5) 하느님을 아는 종교인들의 확신은 의심하는 물질주의자의 불확신에 의해 교란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의 불확신이 체험적 신자의 견고한 신앙과 흔들릴 수 없는 확신에 의해 강한 도전을 받아야만 한다.

103:8.6 (1140.6) 과학에게나 종교에게나 가장 강력한 공헌을 하려면 철학은 물질주의와 범신주의라는 두 극단을 피해야만 한다. 개인성의 실체—변화의 현존 안에서의 영구성—를 깨닫는 철학만이 사람에게 도덕적 가치가 될 수 있고, 물질적 과학과 영적 종교의 이론들 사이의 연락매개자로 봉사할 수 있다. 계시는 진화하는 철학의 허약함을 위한 보완이다.

제 9 장. 종교의 핵심

103:9.1 (1140.7) 신학은 종교의 지적 내용을 취급하며, 형이상학(계시)은 철학적 측면을 취급한다. 종교적 체험은 종교의 영적인 내용물이다. 종교의 지적 내용이 갖는 신화적 변덕들과 심리적 환상, 실수에 대한 형이상학적 가정들과 자아-기만의 기법들, 종교의 철학적 내용에 대한

정치적 왜곡과 사회경제적 오용들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종교의 영적인 체험은 언제나 참되고 정당하다.

103:9.2 (1140.8) 종교는 사고뿐만 아니라 느낌과 행동 그리고 삶으로 행해야만 한다. 사고는 물질적 삶과 더욱 가깝게 관계되며, 온통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이성과 과학의 사실들에 의해서 지배되어야하고 그리고, 영의 영역을 향하는 그러한 비물질적 뻗침에서는 진리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한다. 사람의 신학이 아무리 착각이고 잘못되더라도, 사람의 종교는 전적으로 진실 되며 영속적으로 참될 수 있다.

103:9.3 (1141.1) 불교는 그 기원 형태에 있어서 유란시아의 진화 역사에 두루 일어났던, 하느님 없이 이루어진 최상의 종교들 중의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발전됨에 따라 그것은 하느님이 없는 상태로 머물지 않았다. 신앙이 없는 종교는 하나의 모순이다; 하느님이 없는 종교는 하나의 철학적인 불일치이고 지적인 모순이다.

103:9.4 (1141.2) 자연적인 종교의 마술적이고 신화적인 혈통은 후대의 계시 종교와 예수의 종교인 더할 나위 없이

구원하는 복음에 대한 실체와 진리를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예수의 삶과 가르침은 마침내 마술적인 미신들과 신화적 환상들 그리고 전통적인 독선주의의 속박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마술과 신화는, 초(超)물질적 가치들과 존재들의 실존 그리고 실체를 가정함으로써 후대의 우월한 종교를 위하여 길을 매우 효과적으로 예비하였다.

103:9.5 (1141.3) 종교 체험이 비록 하나의 순수한 영적인 주관적 현상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체험은 우주의 객관적 실체의 가장 높은 영역들을 향한 긍정적이고도 살아있는 신앙 태도를 포용한다. 종교 철학의 이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우주들의 우주의 무한하신 아버지의 절대 사랑에 분별불가하게 의존하도록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신뢰이다. 그러한 참다운 종교 체험은 이상적인 욕구의 철학적 객관화를 훨씬 초월한다; 그것은 실재적으로 구원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그 자신을 오직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 행하는 것만으로 관여한다. 그러한 종교의 특징들은: 최극의 신(神)에 대한 신앙과 영원한 구원에 대한 희망 그리고 사랑인데, 그 사랑은 특별히 자기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103:9.6 (1141.4) 신학이 종교를 지배할 때 종교는 사라지며; 그것은 생명 대신에 하나의 교리가 된다. 신학의 임무는 개인적인 영적 체험에 대한 자아-의식을 촉진시키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신학은 종교의 체험적인 주장들을 정의하고 설명하며 해석하고 정당화시키려는 종교적 노력을 구성하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살아있는 신앙에 의해서만 확인될 수 있다. 우주에 대한 보다 높은 철학에서는, 이성의 지혜가 신앙과 결합하게 된다. 이성과 지혜 그리고 신앙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인간적 달성이다. 이성은 인간에게 사실들의 세계, 사물들을 가르쳐주며; 지혜는 그에게 진리의 세계, 관계들을 가르쳐주며; 신앙은 그를 신성의 세계, 영적인 체험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103:9.7 (1141.5) 신앙은 이성이 갈 수 있는 최대한도로 이성을 가장 기꺼이 옮겨주고 그 후에는 충만한 철학적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지혜와 동행한다; 그 후에 그것은 오직 진리만이 홀로 동행하는 무제한적이고 끝이 없는 우주 여행을 기꺼이 시작한다.

103:9.8 (1141.6) 과학(지식)은 이성이 정당하다는, 우주가 이해될 수 있다는 선천적인(보조 영) 가정 위에 기초를 둔다. 철학(조화-협동의 이해)은 지혜가 정당하다는, 물질적인 우주가 영적인 존재와 조화-협동될 수 있다는 선천적인(지혜의 영) 가정 위에 기초를 둔다. 종교(개인적인 영적 체험에 대한 진리)는 신앙이 정당하다는, 하느님을 알 수 있고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선천적인(생각 조절자) 가정 위에 기초를 둔다.

103:9.9 (1141.7) 필사자 삶의 실체에 대한 충만한 실현은 이러한 이성과 지혜와 신앙의 가정들에 대해 점진적으로 기꺼이 믿으려는 마음속에 존재한다. 그러한 삶은 진리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고 사랑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다; 이것들은 그 실존이 물질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객관적 조화우주 실체에 대한 이상이다.

103:9.10 (1142.1) 이성이 일단 옳고 그름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지혜를 드러내며; 지혜가 옳고 그름, 진리와 실수 사이에서 선택하면 그것이 영의 인도를 실증한다. 그리하여 마음과 혼과 영의 작용은 계속 가깝게 연합하며 기능적으로 상호-연관을 이룬다. 이성은 사실적인 지식을 취급한다; 지혜는

철학과 계시를 취급한다; 신앙은 살아있는 영적 체험을 취급한다. 인간은 진리를 통하여 아름다움을 달성하고 영적인 사랑에 의하여 선(善)에 이른다.

103:9.11 (1142.2) 신앙은 신성한 현존에 대한 신비적 느낌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알도록 이끈다. 신앙은 감정적인 결과들에 의해 과도하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참된 종교는 느낌에서의 만족뿐만 아니라,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것의 체험이다.

103:9.12 (1142.3) 종교적 체험 속에는 영적인 내용물에 비례하는 실체가 존재하며, 그러한 실체는 이성, 과학, 철학, 지혜, 그리고 다른 모든 인간적 성취들을 초월한다. 그러한 체험의 신념은 무너질 수 없고; 종교적인 삶의 논리는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그러한 지식의 확실성은 초인간적이고; 그 만족감들은 최고로 거룩하고, 그 용기는 굴하지 않으며, 그 헌신은 주저함이 없고, 그 충성심은 더할 나위 없으며, 그 운명은 최종적—영원하고 궁극적이며 우주적—이다.

103:9.13 (1142.4)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104 편 삼위일체 개념의 성장

104:0.1 (1143.1) 계시된 종교의 삼위일체 개념은 진화적인 종교들의 3원소 믿음들과 혼동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3원소에 대한 관념들은 많은 암시적 관계들로부터 발생되었지만 주로 손가락이 세 마디로 된 것 때문에, 발판을 고정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다리가 세 개이기 때문에, 세 개의 받침점이 움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시인이 오랫동안 셋 이상을 셀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04:0.2 (1143.2) 과거와 현재, 낮과 밤, 뜨거움과 차가움, 남성과 여성 등과 같은 특정한 자연적 2원소를 제외하면, 인간은 일반적으로 3원소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즉: 어제와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점심과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 등이 그것이다. 승리자에게는 세 번의 환호가 주어진다. 죽은 사람은 셋째 날에 묻히며 세 번 물로 씻음으로써 그 귀신을 위로한다.

104:0.3 (1143.3) 인간 체험에 있어서 이러한 자연적인 관계적-연합이 이루어진 결과로, 3원소는 종교에서도 나타나게 되었고, 파라다이스의 삼위일체 신(神)들 또는 그들의 어떤 대리자들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이것이 인간들에게

게시되었다. 나중에는 페르시아인들, 힌두인들, 그리스인들, 이집트인들, 바빌로니아 사람들, 로마인들, 스칸디나비아 사람들 전체가 3원소적인 하느님들을 소유하였지만, 이것들은 아직 참된 삼위일체들이 아니었다. 3원소 신(神)들은 모두 자연적으로 기원되었고 유란시아에 있는 지능적인 민족들 대부분 사이에서 한때 나타났었다. 때로는 진화적인 3원소 개념이, 계시된 삼위일체 개념과 혼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그것은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제 1 장. 유란시아의 삼위일체 개념들

104:1.1 (1143.4)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깨닫도록 인도한 최초의 유란시아 계시는 약 50만 년 전에 칼리가스티아 영주의 참모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최초의 삼위일체 개념은 행성 반란에 따른 불안정한 시기에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104:1.2 (1143.5) 삼위일체에 대한 두 번째 발표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약 35,000년 후인 마키벤타 멜기세덱 시대에도

전혀 사라지지는 않았는데, 그리하여 셋-사람의 삼위일체 개념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존속되었고, 더욱 특별하게는 인도에서 애그니, 베다의 머리 셋 달린 불(火)의 하느님 속에 오랫동안 영속하게 되었다.

104:1.3 (1143.6) 삼위일체에 대한 세 번째 제시는 마키벤타 멜기세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교리는 살렘의 현자(賢者)가 자신의 흉갑(胸甲)에 붙인 세 개의 동심원으로 상징화되었다. 그러나 마키벤타는 팔레스타인의 베도원들에게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제자들 대부분은 삼위일체가 놀라시아덱의 지고자들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였고; 소수의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체계 주권자와 별자리 아버지, 그리고 지역우주의 창조자 신(神)이라고 생각하였다; 더 적은 무리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파라다이스 관계적-연합에 대한 관념을 희미하게나마 파악하였다.

104:1.4 (1144.1) 살렘 선교사들의 활동을 통하여, 삼위일체에 관한 멜기세덱의 교훈이 유라시아 대부분과 북부 아프리카

전역에 점차적으로 전파되었다. 후기의 안드-사람 시대와
멜기세덱 이후 시대에 3원소와 삼위일체들을 구분하는
것은 대개 힘든 일인데, 그 때에는 두 개념들이 어느 정도
혼합되고 유착되어 있었다.

104:1.5 (1144.2) 힌두인들 사이에서의 삼위일체로서의 개념은
존재와 지성 그리고 기쁨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인도의 후대 개념은 브라마와 시바 그리고 비쉬누였다.)
초기의 삼위일체 묘사가 셋 사제들에 의해 인도로 전파된
반면, 삼위일체에 관한 후대의 관념들은 살렘 선교사들에
의해 전달되었고 이 교리들이 진화적인 3원소 개념들과
합성됨으로써 인도의 원주민 지능인 들에 의해
발달되었다.

104:1.6 (1144.3) 불교도들의 신앙은 삼위일체로서의 자연본성을
갖는 두 교리들로 발달하였다: 초기의 것은 스승과 법도와
형제신분이었으며; 그것은 고타마 싯다르타에 의해
제시된 것이었다. 후대의 관념은 부다의 추종자들의 북부
계열에서 발전되었는데, 최극 주님과 성령 그리고
육신화된 구원자를 포옹하였다.

104:1.7 (1144.4) 그리고 힌두인 들과 불교도들의 이 관념들은 실제 삼위일체로서의 가정(假定)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유일신인 하느님에 대한 삼중적 현시활동의 관념이었다. 참된 삼위일체 개념은 독립된 세 하느님들을 함께 묶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104:1.8 (1144.5) 히브리인들은 멜기세덱 시대의 켄-사람-전승들로부터 삼위일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지만, 한 하느님, 야훼에 대한 그들의 유일신에서의 열정은 그러한 모든 가르침들을 너무나도 어둡게 만들었으므로 예수가 출현하셨을 무렵에는 엘로힘 교리가 유대 신학으로부터 실천적으로 이미 근절된 상태에 있었다. 히브리 마음은 삼위일체로서의 개념을 유일하신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에 대한 유일신에서의 믿음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104:1.9 (1144.6) 이슬람 신앙의 추종자들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에 대한 관념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창발하는 유일신 론이 다신론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삼위일체론을 유지하는 일이 항상 어려움을 겪었다. 삼위일체 관념은 교리적인 융통성과 연결된 견고한 유일신 전통을 갖는 그 종교들을 가장 잘 제어한다. 위대한 유일신 논자였던

히브리인들과 모하멧 교도들은 경배하는 세 하느님들, 다신교, 삼위일체론, 신성(神性)과 개인성의 삼원적 현시활동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신(神) 경배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104:1.10 (1144.7) 예수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개인들에 관한 진리를 자기 사도들에게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그가 비유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히브리의 유일신 론 속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야훼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적 개념과 충돌되는 듯이 보이는 어떤 믿음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초기의 그리스도교인 들은 삼위일체 개념에 반대되는 히브리 선입관을 이어받았다.

104:1.11 (1144.8) 그리스도교의 최초의 삼위일체는 안디옥에서 선포되었으며 하느님과 그의 말씀 그리고 그의 지혜로 구성되어 있었다. 바울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관하여 설교하는 일은 드물었고, 새롭게 형성한 교회들에게 보낸 몇 번의 편지들을 통해서만 그것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그럴지라도, 그의 동료 사도들이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역우주의 창조자 아들인 예수를 신(神)의 둘째 개인인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과 혼동하였다.

104:1.12 (1144.9) 그리스도 이후 1세기가 마무리될 무렵에야 이해하기 시작한 삼위일체에 대한 그리스도교 개념은 우주 아버지와 네바돈의 창조자 아들 그리고 구원자별의 신성한 사명활동자—지역우주의 어머니 영과 창조자 아들의 창조적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104:1.13 (1145.1) 예수의 시대 이후로 이 계시발표들이 제시될 때까지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대한 사실적 정체성이 (특별하게 계시된 소수의 개별존재들은 제외하고는)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삼위일체에 대한 그리스도교 개념이 사실에서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영적인 관계에서 본다면 그것은 실천적으로 진실이다. 오직 그것의 철학적인 함축성과 우주론적 결론만이 이 개념으로 하여금 난처하게 만들었다: 우주적인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神)의 둘째 개인, 무한한 삼위일체의 두 번째 구성원이 한 때 유란시아에 거주하였다고 믿는 것이 어려웠으며;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옳은 반면, 실재성으로는 사실과 다르다.

미가엘 창조자들은 영원한 아들의 신성을 충만하게
체현하지만, 절대적 개인성은 아니다.

제 2 장. 삼위일체 합일과 신(神)의 다수성(多數性)

104:2.1 (1145.2) 유일신 론은 다신교의 모순에 반대되는 철학적
주장으로서 발생되었다. 그것은 처음에는 초물질적
활동들의 세분화(細分化)와 함께 만신(萬神) 체제들을
통하여, 그 다음에는 많은 하느님들보다 뛰어난 한
하느님의 단일신적 승격을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 가치를 갖는 유일하신 하느님 이외의 모든 것을
배제시킴을 통하여 발달되었다.

104:2.2 (1145.3) 삼위일체론은 아무관계도 가지지 않는 우주
의의(意義)의 사람모습탈피의-신(神)으로서 독존하는
신(神)의 하나임을 착상하기가 불가능한 데 대한 체험적
항변으로부터 생겨난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철학은
순수한 일신론의 신(神) 개념으로부터 개인적
본질특성들을 떼어내고, 그렇게 해서 아무관계도 가지지
않는 하느님의 이 관념을 범신주의적인 절대자의 지위로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조화-협동하는 다른 개인적
존재들과 평등 안에서 그 어떤 개인적 관계도 가지지 않는

하느님의 개인적 자연본성을 납득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었다. 신(神) 안에 있는 개인성은 그러한 신(神)이 다르고 그리고 동등한 개인적 신(神)과 관계를 가지면서 존재하는 것을 요구한다.

104:2.3 (1145.4) 삼위일체 개념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시간-공간 창조계 안에 있는 사랑과 법의 상호관계의 어떤 것을 파악하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인간은 영적인 신앙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에 몰입하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영적 신앙이 물질적 우주의 규정된 법칙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음을 곧 발견하게 된다. 사람이 하느님을 자신의 파라다이스 아버지로 여기는 믿음의 견고함에 상관없이, 확대하는 조화우주 지평들은, 사람이 또한 파라다이스 신(神)의 실체를 우주적 법칙으로서 인지하기를, 그가 또한 그 법칙을 삼위일체 주권이 파라다이스로부터 바깥쪽으로 확장하고, 마침내 영원한 세 개인, 그들의 신(神) 연합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사실이며 실체이며 영원한 불가분성인, 그 세 개인의 창조자 아들과 창조자 딸들의 진화하는 지역우주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으로 인지하기를 요구한다.

104:2.4 (1145.5) 그리고 이 동일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하나의 실제 실존개체—개인성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되고 절대적인 실체이다; 개인성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존하는 개인성들—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개인성들—로 비교할 수 있다. 삼위일체는 세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공동의 생겨나는 초(超)집약적 신(神) 실체이다. 삼위일체의 본질특성과 특징과 기능은 세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속성들의 단순한 합계가 아니며; 삼위일체 기능들은 독특하고 기원적인 어떤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속성들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전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104:2.5 (1146.1) 예를 들자면: 주(主)는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자기 추종자들에게 공의가 결코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며; 그것은 항상 집단적인 기능이라고 훈계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들께서도 개인들로서는 공의를 실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이 기능을 공동적인 전체로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로서 수행한다.

104:2.6 (1146.2)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삼위일체 관계적-연합에 대한 개념적 파악은 어떤 다른 삼중적 관계들에 대한 그

이상의 제시를 위하여 인간 마음을 준비시킨다. 신학적 판단력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개념으로 충만하게 만족될 수 있겠지만, 철학적 판단력과 우주적 판단력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다른 삼원적 관계적-연합들, 무한자가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우주적 현시활동—기세, 에너지, 힘, 원인성, 반작용, 잠재성, 실재성, 중력, 긴장, 원형틀, 원칙, 그리고 합일의 하느님에 대한 관계들—의 다양한 수용력 안에서 그 속에 기능하는 저들 삼원일체들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제 3 장. 삼위일체들과 삼원일체들

^{104:3.1 (1146.3)} 인류가 때로는 신(神)의 세 개인들로 이루어진 삼위일체에 대해 납득하기는 하였지만, 일관성을 위해서는 일곱 절대자들 사이의 특정한 관계들이 있음을 인간 지성이 깨닫게 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참된 모든 것이 삼원일체에도 반드시 참될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삼원일체는 삼위일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한 기능적 측면에서 본다면, 삼원일체는 삼위일체와 유사할 수 있지만, 본성에서는 삼위일체와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

104:3.2 (1146.4) 필사 사람은 유란시아에서 지평이 확장되고 개념들이 확대되는 위대한 시대를 두루 통과하고 있으며, 인간 생각의 지능적 무대의 확대와 발걸음을 맞추기 위해서, 그의 조화우주 철학은 진화에 가속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필사 사람의 조화우주 의식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는 물질적 과학, 지능적 철학, 그리고 영적 통찰력 속에서 자신이 발견하는, 모든 것의 내적관계속성을 인지한다. 사람은 조화우주의 합일성에 대한 이러한 모든 믿음과 함께, 모든 실존의 다양성을 여전히 인지한다. 신(神)의 불변성에 관한 모든 개념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일정하게 변화하고 체험적으로 성장하는 우주 안에서 자신이 살고 있음을 인지한다. 영적 가치들의 생존이 실현되는 가에 상관없이, 사람은 언제까지나 수학과 선재(先在)수학으로 기세, 에너지, 그리고 힘에 관하여 끊임없이 추정해왔다.

104:3.3 (1146.5) 어떤 의미에서는, 무한성의 영원한 충만 됨이, 진화하는 우주의 시간-성장과 그리고 그것의 체험적 거주자들의 미완성과 화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체 무한성에 대한 개념은, 필사자 지성과 모론시아 혼이 최종적 가치와 영성화 하는 의의(意義)에

대한 이 개념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분할되고
분별화되어야만 한다.

104:3.4 (1146.6) 이성(Reason)은 조화(Harmony) 우주 실체(Universe Entity)의 유일신(One God)으로서의 합일(Unity)을
요구하지만, 유한한 체험은 복수(Multiplicity)의 절대자(Absolute)에서 오는
가정과 조화 우주 관계에서의 그들의 조화-협동(Harmony-Cooperation)에서 오는
가정을 요구한다. 조화-협동 실존 없이는 절대적 관계들의
다양성(Diversity)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으며, 차이(Difference), 변수(Variation), 변경자(Change),
감쇠자(Diminution), 분별자(Differentiation), 또는 감쇄자(Attenuation)들의 작용에 대한 그 어떤
가망도 없다.

104:3.5 (1146.7) 이 글들 속에서 전체 실체(Universe Entity)(무한성)는 그것이 일곱
절대자들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왔다:

104:3.6 (1146.8) 1. 우주 아버지.

104:3.7 (1146.9) 2. 영원한 아들.

104:3.8 (1146.10) 3. 무한한 영.

104:3.9 (1147.1) 4. 파라다이스 섬.

104:3.10 (1147.2) 5. 신(神) 절대자.

104:3.11 (1147.3) 6. 우주 절대자.

104:3.12 (1147.4) 7. 분별불가 절대자.

104:3.13 (1147.5) 영원한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가 되는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또한 파라다이스 섬에 대하여 원형틀이다. 그는 아들 안에서 분별불가적인 개인성이지만, 신(神) 절대자 안에서 잠재화된 개인성이다. 아버지는 파라다이스-하보나 안에 계시된 에너지이며, 또한 동시에 분별불가 절대자 안에 감추어진 에너지이시다. 무한자는 공동 행위자의 끊임없는 활동들 안에서 언제까지나 드러나며, 한편으로는 우주 절대자의 보정하는 그러나 가려진 활동들 안에서 영원토록 기능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여섯 조화-협동 절대자들에 관계되어 있으며, 그리하여 일곱 모두는 끝없는 영원의 순환주기에 두루 무한의 순환계를 둘러싸고 있다.

104:3.14 (1147.6) 절대적인 관계들의 삼원일체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일 것이다. 개인성은 절대적 차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차원들에서도 다른 개인성 관계적-연합을 추구한다. 그리고 파라다이스의 세 개인성들의 관계적-연합은 첫 번째 삼원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개인성 연합을

영구화(永久化) 시킨다. 왜냐하면 이 세 개인들이, 개인들로서, 연합된 활동을 위해 공동-결합할 때, 그들은 그것에 의하여 기능적 합일의 삼원일체를 구성하는데, 하나의 삼위일체—유기체적 실존개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원일체, 삼중적인 기능적 일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104:3.15 (1147.7)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삼원일체가 아니며; 그것은 기능적 일치가 아니라, 오히려 나뉘어져 있지 않고 또 나뉘 수도 없는 신(神)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개인들로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그들의 나뉘지 않은 신(神)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첫 번째 삼원일체에 대한 그러한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세 개인들로서 그들의 기능적인 연합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삼위일체—나뉘지 않은 신(神)—로서만 그들의 개인적 집합체에서의 삼원일체에 대하여 외면적 관계를 일괄하여 유지하기 때문이다.

104:3.16 (1147.8) 그래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절대적 관계들 속에서 독특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실존적

삼원일체들이 있지만 실존적 삼위일체는 하나밖에 없다. 삼원일체는 실존개체가 아니다. 그것은 유기체적 이기 보다는 기능적이다. 그 구성원들은 협조자들이라기보다는 동반자들이다. 삼원일체들의 구성 요소들은 실존개체들일 수도 있지만, 삼원일체 그 자체는 하나의 관계적-연합이다.

104:3.17 (1147.9) 아무튼, 삼위일체와 삼원일체 사이에는 하나의 유사점이 존재한다: 그 둘 모두는 그 구성원들의 속성들 중에서 인식될 수 있는 전체 이외의 어떤 것들인 기능으로 결국 생겨난다. 그러나 기능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들이 그렇게 비슷하지만, 그 밖에는 그들이 아무런 범주에 관련된 듯 한 관계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다. 그들은 기능이 구조에 대해 갖는 관계로써만 개략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삼원일체 관계적-연합의 기능은 삼위일체 구조 또는 실존개체의 기능이 아니다.

104:3.18 (1147.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원일체들은 실체이다; 매우 실체적이다. 그들 안에서는 전체의 실체가 기능을 발휘하게 되며, 우주 아버지는 그것들을 통하여 무한의 지배적 기능들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개인적인 통제를 행사하신다.

제 4 장. 일곱 삼원일체

104:4.1 (1147.11) 일곱 삼원일체들에 대한 설명을 시도함에 있어서, 우주 아버지가 각각의 시원적 구성원이시라는 사실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그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첫째 우주 아버지-근원, 절대 중심, 시원적 원인, 우주 통제자, 무제한 활성화자, 합일의 근원, 분별불가 유지자, 신(神)의 첫째 개인, 시원적 조화우주 원형틀, 그리고 무한의 본질이 되실 것이다. 우주 아버지는 절대자들의 개인적 원인이다; 절대들의 절대자이다.

104:4.2 (1148.1) 일곱 삼원일체들의 자연본성과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104:4.3 (1148.2) 첫째 삼원일체—개인적이고-목적적인 삼원일체. 이것은 세 신(神) 개인성들의 집합체이다.

104:4.4 (1148.3) 1. 우주 아버지.

104:4.5 (1148.4) 2. 영원한 아들.

104:4.6 (1148.5) 3. 무한한 영.

이것은 사랑과 자비(慈悲) 그리고 사명활동—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세 개인성들의 목적이 분명한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적-연합—의 삼중 연합이다. 이것은 신성한 형제우애관계, 창조체-사랑, 아버지다운 행동, 그리고 상승을-추진하는 관계적-연합이다. 이러한 첫째 삼원일체의 신성한 개인성들은 개인성을 증여하고, 영을 수여하며, 마음을 자질로서 부여하는 하느님들이시다.

이것이 무한한 의지의 삼원일체이다; 그것은 영원한 현재에 두루 그리고 시간의 과거-현재-미래 흐름 전체 속에서 활동한다. 이 관계적-연합은 의지적인 무한을 초래하고 기능구조들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적인 신(神)으로 하여금 진화하는 조화우주의 창조체들에게 자아-계시를 이루게 한다.

둘째 삼원일체—힘-원형틀 삼원일체. 미세한 극자, 타오르는 별 또는 소용돌이치는 성운 그리고 심지어는 중앙우주 또는 초우주들,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가장 큰 물질 조직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지간에, 물리적인 원형틀—조화우주 배열—은 이

삼원일체의 기능으로부터 도출된다. 이 관계적-연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04:4.10 (1148.9) 1. 아버지-아들

104:4.11 (1148.10) 2. 파라다이스 섬.

104:4.12 (1148.11) 3. 공동 행위자.

104:4.13 (1148.12) 에너지는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조화우주 대행자들에 의해 조직된다; 에너지는 파라다이스의 원형틀, 절대적 물질화 이후에 형성되지만; 그러나 끊임없는 이 과정 전체 뒤에는 무한한 영, 공동 행위자의 탄생에 수반된 하보나의 출현 속에 파라다이스 원형틀을 그 연합이 처음으로 활성화시킨 아버지-아들의 현존이 있다.

104:4.14 (1148.13) 종교 체험에 있어서, 창조체들은 사랑이신 하느님과 접촉하지만,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은 파라다이스 자체인 원형틀의 우주 사실에 대한 지능적 이해를 결코 방해해서는 안된다. 파라다이스 개인성들은 신성한 사랑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 모든 창조체들의 자유의지 숭배를 이끌어 내며 영으로 태어난 그러한 모든

개인성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최종자 아들들의 끊임없는 봉사라는 숭고한 환희에 들어가도록 인도한다. 두 번째 삼원일체는 이들 활동행위가 나타나는 공간 무대의 고안건축가이다; 그것은 우주 배열의 원형들을 결정한다.

104:4.15 (1148.14) 사랑은 첫 번째 삼원일체의 신성(神性)의 특성이 되겠지만, 원형들은 두 번째 삼원일체의 은하계 현시활동이다. 첫 번째 삼원일체가 진화하는 개인성들이 되듯이, 두 번째 삼원일체는 진화하는 우주들이 된다. 원형들과 개인성은 첫째 근원이며 중심의 활동들에 대한 거대한 현시활동들 중의 두 가지이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기세-원형들과 사랑하는 개인이 하나의 동일한 우주적 실체임이 사실이다; 파라다이스 섬과 영원한 아들은 우주 아버지-기세의 불가해한 자연본성의 조화-협동하는 그러나 대립적인 계시들이다.

104:4.16 (1149.1) 셋째 삼원일체—영-진화적 삼원일체. 영적인 현시활동의 전체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관계적-연합 속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104:4.17 (1149.2) 1. 우주 아버지.

104:4.18 (1149.3) 2. 아들-영.

104:4.19 (1149.4) 3. 신(神) 절대자.

104:4.20 (1149.5) 영 잠재력으로부터 파라다이스 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은 아버지의 순수한 영 본질과 아들-영의 활동적인 영 가치들 그리고 신(神) 절대자의 무제한적인 영 잠재의 삼원적 관계적-연합 속에서 실체 표현을 발견한다. 영의 실존적 가치들은 그들의 근본적인 기원과 완벽한 현시활동 그리고 이 삼원일체 속에서의 최종적인 운명을 갖는다.

104:4.21 (1149.6) 아버지는 영 이전에 존재한다; 아들-영은 활동적인 창조 영으로 작용하고; 신(神) 절대자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영을 초월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104:4.22 (1149.7) 넷째 삼원일체—에너지 무한의 삼원일체. 이 삼원일체 속에서 모든 에너지 실체의 시작과 끝이 공간 잠재력으로부터 단일소(單一素)로 영원히 계속된다. 이 집단은 다음의 존재들을 포용한다:

104:4.23 (1149.8) 1. 아버지-영.

104:4.24 (1149.9) 2. 파라다이스 섬.

104:4.25 (1149.10) 3. 분별불가 절대자.

104:4.26 (1149.11) 파라다이스는 조화우주의 기세-에너지
활성화의 중심이다.—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우주적 위치,
분별불가 절대자의 조화우주 초점, 그리고 모든 에너지의
근원, 이러한 삼원일체 안에서 실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그 속에서 대우주와 주(主)우주 가 단지 부분적인
현시활동이 되는, 조화우주-무한의 에너지 잠재이다.

104:4.27 (1149.12) 넷째 삼원일체는 우주 에너지의 근본적인
단위들을 절대적으로 통제하며, 변화하는 조화우주를
통제하고 안정시키기 위하여 하위-절대적인 수용력의
체험적 신(神) 속에서 출현된 것에 직접 비례로 분별불가
절대자의 장악으로부터 그것들을 풀어준다.

104:4.28 (1149.13) 이 삼원일체는 기세와 에너지이다. 분별불가
절대자의 무한한 가능성들은 파라다이스 섬의 절대원
주변에 중심을 두는데, 무제한적 존재의 다른 정적인
침묵의 상상할 수 없는 동요가 그곳으로부터 발산된다.
그리고 무한한 조화우주의 물질적인 파라다이스 가슴의

끝없는 약동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원형틀과, 무한한
활성화 제공자,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불가사의한 계획과
조화-협동을 이루며 움직인다.

104:4.29 (1149.14) 다섯째 삼원일체—반응적인 무한성의
삼원일체. 이 관계적-연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04:4.30 (1149.15) 1. 우주 아버지.

104:4.31 (1149.16) 2. 우주 절대자.

104:4.32 (1149.17) 3. 분별불가 절대자.

104:4.33 (1149.18) 이 집단은 신(神)이 아닌 실체의 권역 내에서
실재화될 수 있는 모든 것에서의 기능적 무한성 실현의
영원화를 낳는다. 이 삼원일체는 의지적이고 원인이 되며
긴장되면서 원형틀적인 활동들과 그리고 다른
삼원일체들의 현존들에 대하여 무제한한 반응적
수용능력을 현시한다.

104:4.34 (1150.1) 여섯째 삼원일체—조화우주-연관된 신(神)의
삼원일체. 이 집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04:4.35 (1150.2) 1. 우주 아버지.

104:4.36 (1150.3) 2. 신(神) 절대자.

104:4.37 (1150.4) 3. 우주 절대자.

104:4.38 (1150.5) 이것은 조화우주-안에-있는-신(神) 관계적-연합, 신(神)의 초월성과 관련하는 신(神)의 내재성이다. 이것은 신성시되는 실체의 권역밖에 있는 그 실체들을 향하여 무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신(神)의 마지막 내어뻘침이다.

104:4.39 (1150.6) 일곱째 삼원일체—무한 합일의 삼원일체. 이것은 시간과 영원 속에서 기능적으로 현시하는 무한의 합일, 실재적인 것들과 잠재적인 것들의 조화-협동하는 통일이다. 이 집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04:4.40 (1150.7) 1. 우주 아버지.

104:4.41 (1150.8) 2. 공동 행위자.

104:4.42 (1150.9) 3. 우주 절대자.

104:4.43 (1150.10) 공동 행위자는 현시활동의 모든 차원들, 유한으로부터 초월을 거쳐 절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실재화된 실체의 변화하는 기능적 측면들을 우주적으로

집대성한다. 우주 절대자는 적극적-의지적이고 원인이 되는 신(神) 실체의 무한한 잠재성으로부터, 분별불가 절대자의 불가해한 권역에 있는 정적이고 반응적이고 신(神)이 아닌 실체의 무한한 가능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미완성 실체의 변화하는 측면들 속에 선천적인 차이점들을 완전하게 보정한다.

104:4.44 (1150.11) 그들이 이 삼원일체 속에서 기능함에 따라, 조화-협동 행위자와 우주 절대자는 신(神)에게 그리고 비(非)신(神) 현존들에게 똑같이 민감한데, 첫째근원이며 중심도 역시 그러하며, 그는 이 관계 속에서 스스로 이신 이로부터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모든 의미들과 목적들에게 그러하다.

104:4.45 (1150.12) 이러한 접근은 삼원일체들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삼원일체들의 궁극적 차원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처음의 일곱을 충만하게 이해할 수 없다. 더 이상 시도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15개 삼원적 관계적-연합들이 존재한다는 점은 말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8가지는 이 글들에 계시되지 않는다. 계시되지

않는 이 관계적-연합들은 최극위에 대한 체험적 차원을 벗어나는 실체들과 실재들 그리고 잠재성들과 관련된다.

104:4.46 (1150.13) 삼원일체들은 무한의 기능적 평형장치, 일곱 무한 절대자들의 유일성에 대한 통일이다. 무한이 일곱 절대자들로 변형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스스로 이신 이로 하여금 기능적 무한 합일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은 삼원일체들의 실존적 현존이다.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모든 삼원일체들을 통합하는 일원이다; 모든 것들은 그의 안에서 그들의 분별불가적인 시작과 영원한 실존 그리고 무한한 운명을 갖는다.—“그의 안에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

104:4.47 (1150.14) 비록 이 관계적-연합들이 아버지-스스로 이신 이의 무한성을 증강시킬 수 없을지라도, 그들은 그의 실체에 대한 하위-무한과 하위-절대 현시활동들을 가능하게 만들도록 나타난다. 일곱 삼원일체들은 융통성을 증강시키고, 새로운 깊이들을 영구화시키며, 새로운 가치들을 신(神)구현화시키고, 새로운 잠재성들을 드러내며, 새로운 의미들을 계시한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리고 영원한 조화우주 안에서 변화가 많은 이

모든 현시활동들은 스스로 이신 이의 기원적 무한성의
가상적 정체 상태 안에서 실존적이다.

제 5 장. 삼극일체

104:5.1 (1151.1) 조직에 있어서 아버지가 아닌 다른 어떤 삼원적
관계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실제적인 삼원일체들이
아니며, 아버지 삼원일체들로부터 언제나 구분된다.
그것들은 다양하게 불리는데, 준 삼원일체들, 조화-협동
삼원일체들, 그리고 삼극일체(三者一體)들로 불린다.
그것들은 삼원일체들의 실존의 결과로 일어난다. 이
관계적-연합들 중에서 두 가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04:5.2 (1151.2) 실재성의 삼극일체. 이 삼극일체는 다음의 세
가지 절대적 실상들의 상호관계 속에 존재한다:

104:5.3 (1151.3) 1. 영원한 아들.

104:5.4 (1151.4) 2. 파라다이스 섬.

104:5.5 (1151.5) 3. 공동 행위자.

104:5.6 (1151.6) 영원한 아들은 영 실체의 절대자, 절대적
개인성이다. 파라다이스 섬은 조화우주 실체의 절대자,

절대적 원형틀이다. 조화-협동 행위자는 마음 실체의 절대자이고, 절대적인 영 실체의 협조자이며, 개인성과 힘의 실존적 신(神) 합성이다. 이 삼원적 관계적-연합은 실재화된 실체—영적, 조화우주적, 또는 마음적—의 전체 총합에 대한 조화-협동을 결국 생겨나게 한다. 그것은 실재성에 있어서 분별불가적이다.

104:5.7 (1151.7) 잠재성의 삼극일체. 이 삼극일체는 잠재성의 세 절대자들의 관계적-연합 속에 존재한다.

104:5.8 (1151.8) 1. 신(神) 절대자.

104:5.9 (1151.9) 2. 우주 절대자.

104:5.10 (1151.10) 3. 분별불가 절대자.

104:5.11 (1151.11) 그래서 모든 숨어있는 에너지 실체—영적, 마음적, 또는 조화우주—의 무한 저장소들이 상호-연관되어 있다. 이 관계적-연합은 보이지 않는 모든 에너지 실체의 집대성활동을 가져온다. 그것은 잠재 안에서 무한이다.

104:5.12 (1151.12) 삼원일체들이 시원적으로는 무한의 기능적 통일과 관련되듯이, 삼극일체들은 체험적 신(神)들의

조화우주 출현 속에 포함된다. 삼원일체들은 간접적으로 관계되지만, 삼극일체들은 체험적 신(神)들—최극, 궁극, 그리고 절대—속에서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그것들은 최극존재의 창발하는 힘-개인성 합성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공간의 시간적 창조체에게 있어서 최극존재는 스스로 이신 이의 합일체에 대한 계시이다.

104:5.13 (1151.13)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105 편 신(神)과 실체

105:0.1 (1152.1) 우주 지능존재들 중에서 높은 계층들에게조차도, 무한성이란 것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으며, 실체의 최종도 오직 상대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인간 마음은, 실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의 기원과 운명에 대한 영원성-신비에 침투해보려고 추구할 때, 영원성-무한성을 하나의 절대적인 원인에 의해 산출된 거의 끝없는 타원, 그리고 끝없는 다양화구현의 이 우주 순환회로를 통하여 두루, 운명의 절대적이고 무한한 어떤 것을 언제까지나 추구하도록 기능하고 있는 타원으로, 착상하는 것에 의하여 문제에 접근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05:0.2 (1152.2) 필사자 지성이 실체의 전체성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려고 시도할 때, 그러한 유한한 마음은 무한-실체와 대면하게 된다. 실체의 전체성은 무한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념 수용력에 있어서 하위-무한의 어떤 마음에 의해 충만하게 이해될 수는 결코 없다.

105:0.3 (1152.3) 인간 마음은 영원 실존들에 대한 적절한 개념을 형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그러한 이해 없이는 실체의 전체에 대한 우리의 개념들조차도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필사자 마음의 이해 수준에 맞도록 번역-변경의 과정에서 우리의 개념들이 필히 심각한 왜곡을 겪을 수밖에 없음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소개를 시도한다.

제 1 장. 스스로 이신 이에 대한 철학적 개념

105:1.1 (1152.4) 우주들의 철학자들은 무한의 절대적인 근본 원인성을 무한한, 영원한, 그리고 절대적인 스스로 이신 이로 기능하는 우주 아버지에게로 돌린다.

105:1.2 (1152.5) 무한한 스스로 이신 이에 대한 이 관념을 필사 지성에게 소개함에 수반되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개념은 의미들의 심각한 왜곡과 가치들의

오해가 포함된 인간의 체험적 이해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신 이에 대한 철학적 개념은 절대적인 기원들과 무한한 운명들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에 도달하려고 시도된 접근을 위한 어떤 기초를 유한한 존재들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실체의 기원과 실현을 해명하기 위한 우리들의 모든 시도에 있어서, 스스로 이신 이에 대한 이 개념이 모든 개인성 의미들과 가치들에 있어서 신(神)의 1차 개인, 모든 개인성들의 우주 아버지와 똑같다는 것을 분명히 하자. 그러나 스스로 이신 이에 대한 이 가정(假定)은 우주적 실체의 비(非)신(神)화된 영역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정체화될 수가 없다.

105:1.3 (1152.6) 스스로 이신 이는 무한자이시다; 스스로 이신 이는 또한 무한성이시다. 순차적인 관점, 시간 관점에서 보면, 모든 실체는 그 기원(起源)을 무한한 스스로 이신 이에 두고 있으며, 과거의 무한한 영원에서 그의 유일한 실존은 유한한 창조체의 최초의 철학적 가정이 되어야만 한다. 스스로 이신 이에 대한 개념은 분별불가한 무한성, 무한한 영원의 모든 것 속에 언제라도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차별화되지 않은 실체를 암시한다.

105:1.4 (1153.1)

실존론적인 개념으로서 스스로 이신 이는 신(神)화 된 것이 아니고 비(非)신(神)화 된 것도 아니며, 실재적 또는 잠재적인 것도 아니며, 개인적인 것도 미(未)개인적인 것도 아니며, 정적 또는 역동적인 것도 아니다. 스스로 이신 이는 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분별된-자격도 무한자에게 적용될 수 없다. 스스로 이신 이에 대한 철학적 가정은 분별불가 절대자의 그것보다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하나의 우주 개념이다.

105:1.5 (1153.2)

유한한 마음에는 단순히 시작이 있어야만 하며, 그리고 비록 실체에 실제적인 시작이 결코 없었을지라도, 여전히 실체가 무한을 향하여 현시하는 어떤 근원적 관계들이 있다. 실체-이전(以前), 근본적인, 영원 상태는 다음과 같은 어떤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어떤 무한한 먼 거리에서, 가정(假定)의, 과거-영원 순간에, 스스로 이신 이는 사물이자 비(非)사물로, 원인이자 결과로, 의지이자 반응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적인 영원 순간에는 모든 무한 전체에 그 어떤 차별화도 없었다. 무한성은 무한자에 의해 채워지고; 무한자는 무한성을 포함한다. 이것이 영원에 대해 가정한 정적 순간이다; 실재들은 그들의 잠재 속에 아직 억제된 상태였고, 잠재는

스스로 이신 이의 무한성 안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추측하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자아-의지의 가능성의 실존을 가정해야만 한다.

105:1.6 (1153.3) 우주 아버지에 대한 사람의 이해가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라.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 하느님은 너희와 그리고 다른 모든 필사자에게도 이해될 수 있지만, 우주 아버지에 대한 너희의 체험적 경배 개념은 첫째근원이며 중심, 스스로 이신 이의 무한성에 대한 너희의 철학적 가설보다 항상 작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아버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의 높고 낮은 창조체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하느님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주의 창조체들이 알 수 없는 신(神)의 더 많은 부문이 있다. 너희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아버지, 하느님은, 우리가 실재적 체험의 실체로 우리의 개인성들에게 인지되는 무한성에 대한 단계이다. 그러나 스스로 이신 이는 우리가 첫째근원이며 중심에서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느끼는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가설로서 언제까지나 남아있다. 그리고 그 가정조차도 기원적인 실체의 헤아릴 수없는 무한성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다.

105:1.7 (1153.4) 우주들의 우주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거주하는 개인성들의 무리와 함께, 하나의 광대하고 복잡한 유기체이다. 그러나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우주들과 그의 의도적 지시들에 따라 실체가 된 개인성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너희가 주(主)우주 의 장관을 보고 놀라며 서 있을 때, 잠시 멈추어 서서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창조조차도 무한자의 부분적인 계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기 바란다.

105:1.8 (1153.5) 무한성은 필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체험적 차원과는 정말로 거리가 멀지만, 유란시아의 이 시대에도 무한성에 대한 너희 개념들은 점점 자라가고 있으며, 그것들은 미래의 영원을 향하여 앞으로 뻗어 가는 너희의 끝없는 생애들에 두루 계속 자라갈 것이다. 분별불가 무한성은 유한한 창조체에게는 무의미하지만, 무한성은 자아-제한이 가능하고 우주 실존들의 모든 차원들에게 실체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우주 개인성들을 향하여 돌리는 무한자의 얼굴은 아버지, 사랑의 우주 아버지의 얼굴이다.

제 2 장. 삼원적 그리고 칠중(七重)으로서의 스스로 이신 이

105:2.1 (1153.6) 실체의 기원을 고려할 때, 모든 절대적 실체가 영원으로부터 나왔고 실존의 시작이 없이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라. 절대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신(神)의 세 실존론적 개인, 파라다이스 섬 그리고 세 절대자를 가리킨다. 이 일곱 실체들은, 그들의 순차적인 기원들을 인간 존재들에게 제시함에 있어서 우리가 시간-공간 언어에 의존할지라도, 조화-협동적으로 영원하다.

105:2.2 (1154.1) 실체의 기원에 대한 연대순에 의한 묘사를 따름에 있어서, 스스로 이신 이 안에서의 "최초"의 의지적 표현과 "최초"의 반향 반응에 대한 가정된 이론적 순간이 있어야만 한다. 실체의 기원과 발생에 대한 우리의 묘사를 시도함에, 이 단계는 무한한 것으로부터 무한한 하나가 자아-차별화구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러한 이원적(二元的) 관계의 가정은 무한성, 스스로 이신 이의 영원한 연속체에 대한 이해로서 삼원적 개념으로 항상 확대되어야만 한다.

105:2.3 (1154.2) 스스로 이신 이의 이 자아-변형은 신(神)화된 실체와 비(非)신화된 실체의, 잠재적 그리고 실재적 실체의, 그리고 거의 그렇게 분류될 수 없는 어떤 다른

실체들에 대한 복합적인 차별화(差別化) 속에서 절정에 도달한다. 일원론(一元論)에서의 이론적인 스스로 이신 이의 이러한 차별화들은, 스스로 이신 이—무한함에도 불구하고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현존 속에서 절대로서, 그리고 우주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개인성으로서 계시되는 전(前)잠재, 전(前)실재, 유일한 전(前)개인적인 자—바로 그 스스로 이신 이 안에서 발생하는 동시적 관계로서 영원토록 집대성되는 것이다.

105:2.4 (1154.3) 스스로 이신 이는 이러한 내부적 변형에 의해서 칠중의 자아-관계를 위한 기초를 수립한다. 유일한 스스로 이신 이에 대한 철학적 (시간) 개념과 스스로 이신 이의 삼원으로서의 과도기 (시간) 개념은 이제 그 스스로 이신 이를 칠중으로 포함하도록 확대될 수 있다. 이 칠중—또는 일곱 단계—자연본성은 무한성의 일곱 절대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가장 잘 제시될 수 있다:

105:2.5 (1154.4) 1.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의 아버지 스스로 이신 이. 이것은 실재성들의 시원적인 개인성 관계이다. 아들의 절대 개인성은 하느님의 아버지신분 사실을 절대화시키고 모든 개인성들의 잠재적인 아들관계를

확립한다. 이 관계는 무한자의 개인성을 확립하고 그것의 영적인 계시를 기원적 아들의 개인성 안에서 더할 나위 없이 이룬다. 스스로 이신 이에 대한 이 위상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도 우리 아버지를 경배하는 필사자들까지도 영적인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105:2.6 (1154.5) 2. 우주 통제자. 영원한 파라다이스의 원인인 스스로 이신 이. 이것은 실재성들, 곧 기원적인 비(非)영적 관계적-연합에서의 미(未)개인적인 시원적 관계신분이다. 우주 아버지는 사랑으로서의-하느님이시고; 우주 통제자는 원형틀-로서의-하느님이시다. 이 관계는 형태—모양 구성—의 잠재력을 확립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모든 복제가 이루어지는 주(主)원형틀—미(未)개인적 그리고 비(非)영적인 관계를 결정한다.

105:2.7 (1154.6) 3. 우주 창조자. 스스로 이신 이, 영원한 아들과 하나. 아버지와 아들의 (파라다이스 현존에서) 이 연합은 창조적 순환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공동 개인성과 영원한 우주의 출현으로 더할 나위 없이 이루어진다. 유한한 필사자의 관점에서 보면, 실체는 하보나 창조의 영원

출현과 함께 그것의 참된 시작들을 가진다. 신(神)의 이러한 창조적 활동은, 본질에서 아버지-아들의 합일체이신 행동의 하느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실재의 모든 차원들 위에 그리고 그 차원들에게 현시된다. 그러므로 신성한 창조성은 틀림없이 합일의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합일은 아버지-아들의 이원(二元)성과 아버지-아들-영의 삼위일체의 절대적인 하나 됨의 외부를 향한 반영이다.

105:2.8 (1155.1) 4. 무한한 유지자. 스스로 이신 이, 자아-관계적-연합적임. 이것은 실체의 정적인 것들과 잠재적인 것들의 근본적인 관계적-연합이다. 이 관계에서, 분별화되는 것들과 분별불가한 것들 모두가 보정된다. 스스로 이신 이에서의 이 위상은 우주 절대자—신(神) 절대자와 분별불가 절대자의 통합자—로서 가장 잘 이해된다.

105:2.9 (1155.2) 5. 무한한 잠재자. 스스로 이신 이, 자아-분별화됨. 이것은 그것의 덕분에 삼중적 자아-표현과 자아-게시가 성취되는 스스로 이신 이의 의지적 자아-제한에 대해 영원한 증거를 지니는 무한의 기준점이다. 스스로 이신 이에 대한 이 위상은 대개 신(神) 절대자로 이해된다.

105:2.10 (1155.3)

6. 무한한 수용능력자. 스스로 이신 이, 정적-반응, 이것은 끝남이 없는 모체, 미래의 모든 우주 확대에 대한 가능성이다. 스스로 이신 이에 대한 이 위상은 아마 분별불가 절대자의 초(超)중력 현존으로 가장 잘 이해된다.

105:2.11 1155.4)

7. 무한성의 우주자인 자. 스스로 이신 이로서의 스스로 이신 이. 이것은 무한성의 균형 상태 또는 자아-관계, 무한성-실체의 영원한 사실 그리고 실체-무한성의 우주적 진리이다. 이 관계가 개인성으로 구별될 수 있는 한, 그것은 모든 개인성의—심지어 절대 개인성도—신성한 아버지로서 우주들에게 계시된다. 이 관계가 미(未)개인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한, 그것은 우주 아버지의 현존에서 순수한 영과 순수한 에너지의 절대적 응집으로서 우주에 의해 접촉된다. 이 관계가 하나의 절대로서 이해될 수 있는 한, 그것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시원성 속에 계시된다; 공간의 창조체들로부터 파라다이스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그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우리의 존재가 있다; 이것은 무한소(無限小)의 극자에서와 마찬가지로 주(主)우주

에서도 똑같이 진실이다, 현재와 이제까지 그러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것에서도 똑같이 진실이다.

제 3 장. 무한성의 일곱 절대자

105:3.1 (1155.5) 스스로 이신 이 안에서의 주요 일곱 관계들은 무한성의 일곱 절대자로 영존(永存)한다. 그러나 우리가 순차적 이야기로 실체 기원과 무한성의 구분을 묘사하더라도, 사실은 모든 일곱 절대자들이 분별불가적으로 그리고 조화-협동적으로 영원하다. 필사자 마음들에게는 그들의 시초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 개념은 일곱 절대자들에게 시작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실현에 의해 언제나 가리어져야만 했다; 그들은 영원하고 그렇게 항상 존재해 왔다. 일곱 절대자들은 실체의 전제(前提)이다. 그들은 이 글들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105:3.2 (1155.6) 1. 첫째근원이며 중심. 신(神)의 첫째 개인이며 최초의 비(非)신(神) 원형틀, 하느님, 우주 아버지, 창조자, 통제자, 유지자, 우주적 사랑, 영원한 영, 무한의 에너지; 모든 잠재들의 잠재며 모든 실재의 근원; 모든 정적인 것의 안정성이며 모든 변화의 역동력; 원형틀의 근원이며

개인들의 아버지. 집합적으로, 모든 일곱 절대자들이
무한성과 동등하지만, 우주 아버지 자신은 실재적으로
무한하시다.

105:3.3 (1155.7) 2. 둘째근원이며 중심. 신(神)의 둘째 개인, 영원한
기원적 아들; 스스로 이신 이의 절대 개인성 실체들이며
"스스로 이신 이 개인성"의 실현-계시를 위한 기초. 어떤
개인성도 그의 영원한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주
아버지에게 도달할 희망이 없다; 또한 모든 개인성들에
대한, 이 절대 원형들의 행동과 도움과 떨어져서는 어떤
개인성도 실존의 영 차원들에 도달할 수가 없다.
둘째근원이며 중심에서 영은 분별불가적인 반면 개인성은
절대적이다.

105:3.4 (1156.1) 3. 파라다이스 근원이며 중심. 둘째 비(非)신화
원형들, 영원한 파라다이스 섬; "기세 스스로 이신 이"의
실현-계시를 위한 기초이며 우주 전반에 걸친 중력 통제
수립을 위한 토대. 모든 실재화된, 비(非)영적,
미(未)개인적, 그리고 비(非)의지적 실체에 관해서,
파라다이스는 원형들들의 절대이다. 영 에너지가 어머니-
아들의 절대 개인성을 통하여 우주 아버지와 관련되는

것과 똑같이,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중력 통제로 장악된 모든 조화우주 에너지는 파라다이스 섬의 절대 원형틀을 통하여 관계된다. 파라다이스는 공간에 있지 않다; 공간은 파라다이스에 상대적으로 존재하고, 운동의 계속성은 파라다이스 관계를 통하여 결정된다. 영원한 섬은 절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조직되고 조직하는 다른 모든 에너지는 영원한 운동 안에 있다; 모든 공간에는, 오직 분별불가 절대자의 현존만이 고요하고, 분별불가자는 파라다이스에 조화-협동하고 있다. 파라다이스는 공간의 중심에 존재하고, 분별불가자는 그것을 충만하게 채우며, 모든 상대적 실존은 이 권역 안에서 존재한다.

105:3.5 (1156.2) 4. 셋째근원이며 중심. 신(神)의 셋째 개인, 공동 행위자; 영원한 아들의 영 에너지들과 파라다이스의 우주 에너지들을 무한한 집대성 자; 의지의 동기들과 기세의 역학들을 완전하게 조화-협동시키는 존재; 모든 실재적 실체와 실재화 되는 실체를 통합시키는 존재. 그의 다양한 자녀들의 봉사들을 통하여 무한한 영은 영원한 아들의 자비를 계시하며 동시에 무한한 조종자로서 기능하고, 공간의 에너지들 속으로 파라다이스의 원형틀을 언제까지나 짜 맞춘다. 이 동일한 공동 행위자, 행동의

하느님은 아버지-아들의 무한한 계획들과 목적들의 완전한 표현인 반면 그 자신은 마음의 근원으로 그리고 멀리 퍼지는 조화우주의 창조체들에게 지성을 증여하는 존재로 기능한다.

105:3.6 (1156.3) 5. 신(神) 절대자. 원인성인 자(者), 우주 실체의 잠재적으로 개인적인 가능성들, 모든 신(神) 잠재의 총합. 신(神) 절대자는 분별불가적, 절대적, 그리고 비(非)신 실체들의 목적적인 분별화하는 자이다. 신(神) 절대자는 절대에서의 분별화하는 자이며 분별화된 것을 절대화(絶對化)하는 자—운명 개시자—이다.

105:3.7 (1156.4) 6. 분별불가 절대자. 정적, 반응적, 미정된 절대; 스스로 이신 이의 계시되지 않은 조화우주 무한성; 비(非)신화된 실체의 총체성 그리고 비(非)개인적 잠재의 최종성. 공간이 분별불가자의 기능을 제한하지만, 분별불가자의 현존은 한계가 없고 무한이다. 주(主)우주에는 개념적 가장자리가 있지만, 분별불가자의 현존은 무한하다; 영원조차도 이러한 비(非)신(神) 절대자의 한없는 정적을 비우지 못한다.

105:3.8 (1156.5) 7. 우주 절대자. 신(神)화된 자와 비(非)신화된 자의 통합자; 절대와 상대를 상호연관하는 자. 우주 절대자는 (정적, 잠재적, 그리고 연관적임) 항상-실존하는 것들과 완성되지 않은 것들 사이의 긴장을 보상한다.

105:3.9 (1156.6) 무한성의 일곱 절대자들은 실체의 시작들을 구성한다. 필사자의 마음들이 그것을 대할 때,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모든 절대들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은, 도움이 되더라도, 아들, 영, 세 절대자들 그리고 파라다이스 섬의 영원 공존에 의해 무효화된다.

105:3.10 (1157.1) 절대자들이 스스로 이신 이-첫째근원이며 중심의 현시활동들인 것은 진리이다; 이들 절대자들에게 시작이 없었지만 첫째근원이며 중심과 조화-협동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다. 영원에서의 절대들의 관계는 시간의 언어로 그리고 공간의 개념 원형틀에서 모순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결코 제시될 수 없다. 그러나 무한성의 일곱 절대자들의 기원에 관한 어떤 혼동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체가 그들의 영원성 실존과 무한성 관계들 위에 입각한다는 것은 사실인 동시에 진리이다.

제 4 장. 합일체, 이원일체 그리고 삼원일체

105:4.1 (1157.2) 우주의 철학자들은 스스로 이신 이의 영원성 실존을 모든 실체들에 대한 최초의 근원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 이신 이가 최초의 자아-관계들—무한성의 일곱 위상들—로 자아-분할하였음을 가정한다. 그리고 이 가정과 동시에 세 번째 가정—무한성의 일곱 절대자들의 영원성 출현이, 스스로 이신 이의 일곱 위상들과 이 일곱 절대자들의 이원성(二元性) 관계적-연합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105:4.2 (1157.3) 스스로 이신 이의 자아-계시는 자아-분할을 거친 정적인 자아 그리고 절대 관계들, 자아-유래되는 절대자들과의 관계들로부터 이렇게 발생한다. 이원일체는 그렇게 무한성의 일곱 절대자들과 자아-계시의 스스로 이신 이가 자아-분할된 위상의 칠중 무한성과의 영원한 관계적-연합 안에 실존한다. 우주들에게 일곱 절대자들로써 영구화(永久化) 하는 이 이원(二元) 관계들은 모든 우주 실체를 위해 기본적인 기초들을 영원화 한다.

105:4.3 (1157.4) 합일체가 이원일체(二元一體)를 낳는다는 것, 이원일체가 삼원일체를 낳는다는 것, 그리고 삼원일체가 모든 것들의 영원한 조상이라고 때로는 이야기되었다. 정말로 근본적 관계들의 위대한 세 등급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05:4.4 (1157.5) 1. 합일체 관계들. 스스로 이신 이 안에서, 합일체로 그것으로부터 삼중으로 이해되고 그 다음에는 칠중의 자아-차별화구현으로 이해되는, 그러한 합일체로 실존하는 관계들.

105:4.5 (1157.6) 2. 이원일체(二元一體) 관계들. 칠중으로서의 스스로 이신 이와 무한성의 일곱 절대자들 사이에 실존하는 관계들.

105:4.6 (1157.7) 3. 삼원일체(三元一體) 관계들. 이것들은 무한성의 일곱 절대자들의 기능적 관계적-연합이다.

105:4.7 (1157.8) 삼원일체 관계들은 이원일체 기초들 위에서 절대자 상호-연관의 불가피성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한 삼원일체 관계적-연합들은 모든 실체의 잠재를 영원화

한다; 그들은 신(神)화된 실체와 비(非)신화된 실체 모두를 포함한다.

105:4.8 (1157.9) 스스로 이신 이는 합일체로서 분별불가 무한성이다. 이원일체들은 실체 기초들을 영원화 한다. 삼원일체들은 무한성의 실현을 우주 기능으로 결국 생겨나게 한다.

105:4.9 (1157.10) 선재적인 것들이 일곱 절대자들로 실존적이 되며, 실존적인 것들은 절대자들의 기본적인 관계적-연합인 삼원일체들 안에서 기능적으로 된다. 그리고 그 삼원일체들의 영원화에 부수적으로, 우주 무대가 정해지고—잠재들이 실존하고 실재들이 현재로 제시되고—그리고 영원의 충만함은 우주 에너지의 변형, 파라다이스 영의 퍼져나감, 그리고 개인성의 증여와 함께 마음의 자질-부여를 목격하고 증명한다. 이것의 덕분으로 모든 신(神)과 파라다이스 파생물들은 창조체 차원의 체험 속에서 통합되며 그리고 초(超)창조체 차원에서는 다른 기법들에 의해서 통합된다.

제 5 장. 유한 실체의 출현

105:5.1 (1158.1) 스스로 이신 이의 최초 변형이 고유하고 자아-억제된 의지에 기인해야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한 실체의 출현은 파라다이스 신(神)의 의지적 행동들 그리고 기능적 삼원일체들의 반향적 조절들의 결과에 기인해야만 한다.

105:5.2 (1158.2) 유한자의 신(神)구현화 전에, 모든 실체 차별화가 절대적 차원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유한 실체를 출현시키는 의지적 행동은 절대성의 분별된-자격을 암시하고 상대성들의 출현을 의미한다.

105:5.3 (1158.3) 우리가 이 이야기를 순차로 제시하고 유한 실체의 역사적인 출현을 절대의 직접적 파생물로 묘사하지만, 초월적인 것들이 유한한 모든 것을 우선하였고 그리고 계승하였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초월적인 궁극들은 유한 실체에 대하여 원인인 동시에 완성이다.

105:5.4 (1158.4) 유한 가능성은 무한자 속에 선천적이지만, 가능성이 개연성으로 그리고 필연성으로의 변화는 모든 삼원일체 관계적-연합들을 활성화시키는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자아-실존적 자유의지에 기인되어야만 한다. 오직 아버지의 뜻의 무한성만이 언제나 실존의 절대차원을

궁극이 결국 생겨나게 하거나 유한을 창조하도록 그렇게
분별화할 수 있다.

105:5.5 (1158.5) 상대적이고 분별화된 실체의 출현과 함께, 실체의
새로운 주기(週期)—성장주기—, 즉 파라다이스와
신(神)을 향하여 안쪽으로 언제까지나 휘돌아 회전하면서,
무한성 근원과 어울리는 그 높은 운명들을 항상
추구하면서, 무한성의 고지로부터 유한자의 권역으로
내려가는 장엄함이 존재하게 된다.

105:5.6 (1158.6) 상상할 수 없는 이 활동행위들이 우주역사의
시초들을 구분 짓고, 시간 그 자체의 실존이 시작됨을 구분
짓는다. 창조체에게, 유한의 시작은 실체의 기원이며;
창조체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유한보다 먼저 상상할 수
있는 실재성은 없다. 새롭게 나타나는 이 유한 실체는 두
가지 최초 위상 속에 존재 한다:

105:5.7 (1158.7) 1. 제1 최대들, 최극으로 완전한 실체, 우주와
창조체의 하보나 유형.

105:5.8 (1158.8) 2. 제2 최대들, 최극으로 완전하게 된 실체,
창조체와 창조의 초우주 유형.

그리고는, 이것들이 두 가지 최초 현시활동들이다: 구조적으로 완전한 것과 진화적으로 완전하게 된 것, 그 두 가지는 영원성 관계들 안에서 조화-협동을 이루지만, 시간의 한계들에서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인다. 시간 요소는 성장하는 것들에게 성장을 의미한다; 제2 유한자들은 성장한다; 그러므로 성장하는 그것들은 시간 속에서 미완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차이점들은, 파라다이스의 이쪽 편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영원에서는 실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완전한 것과 완전하게 된 것을 제1 그리고 제2 최대들로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유형이 있다. 제1 그리고 제2 최대들 사이에서 삼위일체화 하는 것과 그 밖의 관계들은 제3의 최대들—완전하지도 않고 아직 완전하게 되지도 않은 두 가지 선조(先祖) 요소들과 조화-협동하는 사물들, 의미들 그리고 가치들—의 출현을 가져온다.

제 6 장. 유한 실체의 반향

전체 유한 실존들의 출현은 기능적 무한성의 절대 관계적-연합들 속에서 잠재들로부터 실재로의 이전을

의미한다. 유한자의 창조적 실재화구현에 대한 많은 반향들 중에서, 다음의 것들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105:6.2 (1159.2) 1. 신(神) 응답, 체험적 최극위의 세 차원의 출현: 하보나의 개인적-영 최극위의 실재성, 대우주에서 이루어질 개인적-힘 최극위를 위한 잠재, 그리고 미래의 주(主)우주 의 어떤 최극위 차원에서 활동할 체험적 마음의 알려지지 않은 어떤 기능을 위한 역량.

105:6.3 (1159.3) 2. 초우주 공간 차원을 위한 고안건축 계획의 활성화가 포함된 우주 응답, 그리고 이 진화는 일곱 초우주들의 물리적 조직에 두루 여전히 진보하고 있다.

105:6.4 (1159.4) 3. 유한-실체 출현에 대한 창조체 반향은 하보나의 영원한 거주자들의 계층에서 완전한 존재들의 출현과 일곱 초우주들로부터 완전하게 된 진화적 상승자들의 출현으로 귀착된다. 그러나 진화적(시간-창조적)체험으로서 완전성을 달성하는 것은 출발점으로서 완전성이-아닌-다른 어떤 것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진화적 창조계들에서 불완전성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것이 잠재적인 악의 기원이다. 부적응, 부조화, 그리고 갈등, 이 모든 것들은 물리적인 우주들로부터

개인적 창조체들에 이르기까지 진화적 성장 속에
선천적이다.

105:6.5 (1159.5) 4. 진화의 시간지연에 선천적인 불완전성에 대한
신성 응답은, 완전하게 하는 것이 완전한 것과 완전하게 된
것 두 가지 모두를 집대성하는 것인,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칠중 하느님의 보정하는 현존에서 드러난다. 이 시간
지연은 진화에서 분리할 수 없다, 그것은 시간 창조성이다.
이것 때문에, 다른 이유들도 마찬가지로, 최극자의 전능한
힘은 칠중 하느님의 신성 결과들에 입각하는 것이다. 이
시간의 지연은 창조체 개인성들이 최대한의 발달을
달성함으로서 신(神)과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서 신성한 창조에 창조체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필사 창조체의 물질적인 마음조차도 그렇게 불멸
혼의 이원화(二元化)구현으로서 신성한 조절자와
협력자가 된다. 또한 칠중 하느님은 불완전성의 상승-
이전의 한계들을 보정할 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완전성의
체험적 한계들을 위한 보정 기법을 제공한다.

제 7 장. 초월적인 것들의 결국 생겨남

초월적인 것들은 하위-무한이고 하위-절대이지만 초(超)유한이고 초(超)창조적이다. 초월적인 것들은 유한들의 최대 가치들과 절대들의 초(超)가치들을 상호 연결시키는 집대성하는 차원으로 결국 생겨난다. 창조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초월적인 것은 유한의 결말로서 결국 생겨난 것처럼 보인다; 영원의 관장에서 본다면, 유한의 예상 안에서 결국 생겨난 것처럼 보인다; 그것을 유한의 "선재(先在)적-반향"으로 간주하는 자들도 있다.

초월적인 그것은 반드시 비(非)발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유한한 감각에서 보면 그것은 진화를 초월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비(非)체험적인 것도 아니지만, 창조체들에게 의미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체험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러한 역설적인 것에 대한 최선의 설명은 아마도 완전성의 중앙우주일 것이다.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거의 아니다—파라다이스 섬만이 "물질화된" 감각에서 진정으로 절대적이다. 또한 그것은 일곱 초우주들과 같이 유한의 진화하는 창조도 아니다. 하보나는 영원한 것이지만, 비(非)성장의 우주 존재 감각에서 볼 때, 변화 없음은 아니다. 거기에는 실재적으로

창조된 적이 없는 창조체들(하보나 원주민들)이 거주하며, 그들은 영원히 실존한다. 그리하여 하보나는 순전히 유한하지도 않고 아직 절대적이지도 않은 어떤 것을 예시한다. 더 나아가 하보나는 절대적인 파라다이스와 유한 창조계들 사이에서 하나의 완충물로 작용하며, 더 나아가 초월적인 것들의 기능을 밝혀준다. 그러나 하보나 자체는 초월적인 것이 아니다—그것이 하보나이다.

^{105:7.3 (1160.1)} 최극자가 유한 존재들과 연관하듯이, 궁극자는 초월적인 존재들과 정체성이 확인된다. 그러나 우리가 최극자와 궁극자를 그렇게 비교하더라도, 그들은 신분 이외의 다른 면에서도 차이가 난다; 그 차이는 또한 본질특성적인 문제이다. 궁극자는 초월적인 차원에 구체적으로 투사된 초(超)최극자 이상(以上)의 어떤 것이다. 궁극자는 그것의 전체이지만 그 이상이다: 궁극자는 새로운 신(神) 실체들의 생겨남이며, 그때까지 분별불가적인 것의 새로운 위상에서의 분별된-자격이다.

^{105:7.4 (1160.2)} 초월적인 차원과 연관된 그 실체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05:7.5 (1160.3)} 1. 궁극자의 신(神) 현존.

105:7.6 (1160.4) 2. 주(主)우주 의 개념.

105:7.7 (1160.5) 3. 주(主)우주 고안건축가.

105:7.8 (1160.6) 4. 파라다이스 기세 조직자들의 두 계층.

105:7.9 (1160.7) 5. 공간 잠재력 속의 특정한 변형들.

105:7.10 (1160.8) 6. 영의 특정한 가치들.

105:7.11 (1160.9) 7. 마음의 특정한 의미들.

105:7.12 (1160.10) 8. 아(亞)절대 본질특성들과 실체들.

105:7.13 (1160.11) 9. 전능, 전지, 전재(全在)

105:7.14 (1160.12) 10 공간

105:7.15 (1160.13)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는 유한, 초월적, 그리고 절대적 차원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성 행위와 에너지 변형의 끝없는 연극을 상연하는 우주의 무대이다.

105:7.16 (1160.14) 그리고 모든 이 다양한 실체들은 여러 삼원일체들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통합되고,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에 의해 기능적으로, 일곱 주(主) 영들, 칠중

하느님의 신성의 하위-최극의 조화-협동자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통합된다.

105:7.17 (1160.15) 칠중 하느님은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과 신성의
계시를 최대와 하위-최대상태 모두의 창조체들에게
나타내지만, 영이신 하느님의 신성한 영적 사명활동의
현시활동에 속하지 않는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다른
칠중(七重) 관계들이 있다.

105:7.18 (1160.16) 과거의 영원에서, 절대자들의 기세들,
신(神)들의 영, 그리고 하느님들의 개인성들은 자아-
실존적 자아-의지의 시원적 자아-의지에 응답하여
술렁거렸다. 이 우주 시대에 우리들 모두는 이들 모든
실체의 한계 없는 잠재들의 하위-절대적 현시활동들로
멀리-퍼지는 조화우주 장관의 엄청난 반향들을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기원적 실체의
계속적인 다양화가, 시대에서 시대를 두루, 계속적으로,
절대적인 무한성의 멀고도 상상할 수 없는 확장 속으로
앞으로 그리고 밖으로 진행될 것이다.

105:7.19 (1161.1)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106 편 실체의 우주 차원

106:0.1 (1162.1) 상승하는 필사자는 우주 실체의 창생과 현시활동들에 대한 신(神)의 관계들 중의 어떤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또한 그는 실존적인 그리고 체험적인 실체들, 잠재적인 실체들과 실재적인 실체들에 대한 수많은 차원들과 자기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들에 대한 어떤 것도 이해해야만 한다.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적응, 그의 조화우주 통찰력, 그리고 그의 영적 방향성구현은 모두 우주 실체들에 대한 더 나은 이해 그리고 상호-연관과 집대성활동과 통일에 대한 그들의 기법들에 의해 증진된다.

106:0.2 (1162.2) 현재의 대우주와 창발하는 주(主)우주는, 기능적 활동의 여러 차원들에서 차례로 실존하는 실체의 여러 형태들과 위상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실존들과 잠복들은 이 글들에서 이미 제시되었으며, 이제는 개념적인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범주들로 구분된다:

106:0.3 (1162.3) 1. 미완성 유한들. 이것은 대우주의 상승하는 창조체들의 현재 지위, 유란시아 필사자들의 현재 지위이다. 이 차원은 행성의 인간으로부터 운명

달성자들에 이르기까지의 창조체 실존을 포용하지만 운명 달성자들은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초기의 물리적 출발점들로부터 빛과 생명 안에 정착하기까지 우주에 부속되지만, 빛과 생명 안에서의 정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차원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창조적인 활동의 현재 가장자리를 구성한다. 그것은 파라다이스로부터 현재 우주 시대의 마감을 향하여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대우주가 빛과 생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또한 분명히 최초의 외부 공간 차원에서 발전적 성장의 어떤 새로운 질서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106:0.4 (1162.4) 2. 최대 유한들. 이것은 운명—현 우주 시대의 범위 내에서 계시된 대로의 운명—을 달성한 모든 체험적 창조체들의 현재 지위이다. 우주들도 영적인 면과 물리적인 면에서 모두 최고 지위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라는 말은 그 자체가 계시적인 단어—무엇에 대한 관계에서 최고인가?—이다. 그리고 최대점에 달한 그것은 현재 우주 시대에서는 최종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가올 시대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실제 시작에 불과하다.

하보나의 어떤 위상들은 최대 계층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106:0.5 (1162.5) 3. 초월들. 유한 진보 다음에 이 초(超)유한 차원이 (먼저) 따라온다. 그것은 유한 시초들의 유한-이전 기원과, 명백하게 유한한 모든 종말들 또는 운명들의 유한-이후 의의(意義)를 포함한다. 파라다이스-하보나의 대부분은 초월적 계층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6:0.6 (1162.6) 4. 궁극들. 이 차원은 완성된 주(主)우주 의 운명 차원에 영향을 미치며 주(主)우주 에 의의(意義)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파라다이스-하보나는 (특히 아버지의 세계들의 순환회로) 여러 면에서 궁극적 의의(意義)를 지닌다.

106:0.7 (1163.1) 5. 공동절대들. 이 차원은 창조적 표현의 초(超)주(主)우주 장(場)에서의 체험자들의 구체적인 투사 활동을 의미한다.

106:0.8 (1163.2) 6. 절대들. 이 차원은 실존적 일곱 절대자들의 영원 현존을 암시한다. 또한 그것은 어느 정도의 연관된 체험적 달성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방법을 납득하지 못하며, 어쩌면 개인성의 잠재와 접촉을 통해서일 것이다.

106:0.9 (1163.3) 7. 무한. 이 차원은 실존-이전이며 체험-이후이다. 무한의 분별불가한 합일은 모든 시초들 이전과 모든 운명들 이후의 가정적 실체이다.

106:0.10 (1163.4) 실체에 대한 이 차원들은 현재 우주 시대의 그리고 필사자적 전망을 위한 편리한 타협의 상징화이다. 필사자 이외의 다른 전망에서 그리고 다른 우주적 시대들의 입장에서 실체를 바라보는 여러 다른 방법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에 첨부하여 제시된 개념들이 전반적으로 상대적이라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해 제한되고 조건이 설정되는 감각 속에서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106:0.11 (1163.5) 1. 필사자 언어의 제한성들.

106:0.12 (1163.6) 2. 필사자 마음의 제한성들.

106:0.13 (1163.7) 3. 일곱 초우주들의 제한적인 발달.

106:0.14 (1163.8) 4. 파라다이스를 향한 필사자의 상승에 관계되지 않는 초우주의 여섯 가지 주요 목적들에 대한 너희의 무지함.

106:0.15 (1163.9) 5. 부분적인 영원 관점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너희의 무력함.

106:0.16 (1163.10) 6. 일곱 초우주들이 진화적으로 나타나는 현 시대에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 시대들과 관련된 조화우주 진화와 운명을 묘사하기가 불가능함.

106:0.17 (1163.11) 7.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실존-이전(以前)의 것들 또는 체험-이후의 것들에 의해 파악하는 능력이 어떤 창조체에게도 없음.

106:0.18 (1163.12) 실체 성장은 계속적인 우주 시대들의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중앙우주는 하보나 시대에는 진화적 변화를 전혀 겪지 않지만, 현재의 초우주의 신(新)시대 기간에 있어서는 그것이 진화하는 초우주들과 조화-협동함으로써 야기되는 특정한 진보적 변화들을 겪고 있다. 현재 진화하고 있는 일곱 초우주들은 언젠가는 빛과 생명의 안정된 지위를 달성하게 될 것인데, 현재 우주

시대에 해당하는 성장 한계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물론 다음 시대, 최초의 외부 공간 차원의 시대는 현 시대의 운명 한계들로부터 초우주들을 풀어줄 것이다. 총만함은 완성에 따라 계속적으로 첨가(添加)되고 있다.

106:0.19 (1163.13) 이것들은 사물들과 의미들 그리고 가치들의 조화우주 성장에 대한 통합된 개념 그리고 영원히 상승하는 실체의 차원에서의 그들에 대한 합성된 개념을 제시하려고 시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제한점들 중의 일부이다.

제 1 장. 유한 기능들의 1차 관계적-연합

106:1.1 (1163.14) 유한 실체의 1차 또는 영-출처 위상들은 창조체 차원들에서는 완전한 개인성들로 그리고 우주 차원들에서는 완전한 하보나 창조로 직접 표현됨을 발견한다. 심지어는 체험적 신(神)도 하보나에 있는 최극자 하느님의 영 개인 속에서 그렇게 표현된다. 그러나 유한 존재의 2차적, 진화적, 시간-물질-제한된 위상들은 오직 성장과 달성의 결과로서만 조화우주로 집대성되게 된다. 2차 또는 완성되어 가는 모든 유한체들이 결국에는 1차 완성의 그것과 동일한 차원을 달성하게 되지만,

그러한 운명은 시간 지연, 중앙 창조계에서는 유전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초우주를 구성하는 분별된-자격에 종속된다. (우리는 제3의 유한체들이 실존하는 것을 알지만, 그들의 집대성활동의 기법은 아직 계시되지 않았다.)

106:1.2 (1164.1) 이러한 초우주 시간 지연, 완전성 달성을 막는 이 방해물은 창조체가 진화적 성장에 참여하도록 준비한다. 그래서 그것은 창조체로 하여금 동일한 그 창조체의 진화 속에서 창조자와 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든다. 그리고 확대하는 성장을 이룩하는 이 시기들 동안 미완성인 것은 칠중 하느님의 사명활동을 통하여 완전한 것과 상관관계를 갖는다.

106:1.3 (1164.2) 칠중 하느님은 공간의 진화하는 우주들 속에서 시간이라는 방해물들에 대한 이해를 파라다이스 신(神)에 의해 나타낸다. 파라다이스로부터 아무리 멀어도, 공간적으로 아무리 깊더라도, 물질적으로 생존된 개인성이 생겨날 수 있는데, 칠중 하느님이 거기에 존재하시고 그러한 미완성이고 고심하며 진화적인 창조체에게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善)으로 이루어진 사랑

넘치고 그리고 자비 넘치는 사명활동에 종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칠중 하느님의 신성 사명활동은 영원한 아들을 통하여 파라다이스 아버지를 향해 안쪽으로 뻗어나가며 옛적으로 늘 계신이를 통하여 우주의 아버지들—창조자 아들들—을 향해 밖으로 뻗어나간다.

106:1.4 (1164.3) 사람은, 개인적이 되어가면서 그리고 영적 진보에 의해서, 칠중 신(神)의 개인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신성을 발견한다, 그러나 개인성의 진보와 관여되지 않는 칠중 하느님의 다른 위상들이 존재한다. 현재 이러한 신(神) 집단화에서의 신성 양상들은 일곱 주(主) 영들과 공동 행위자 사이의 연락 속에서 집대성되고 있지만, 그들은 최극존재의 창발하는 개인성 속에서 영원히 통합되도록 운명지워져 있다. 현재의 우주 시대 속에서 칠중 신(神)의 다른 위상들이 다양하게 집대성되어 있지만,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로 최극자 안에서 통합되도록 운명지워져 있다. 칠중자는, 모든 위상에서, 현재 대우주의 기능적 실체의 상대적 합일의 근거이다.

제 2 장. 2차 최극 유한 집대성활동

106:2.1 (1164.4) **칠중** 하느님이 유한 진화를 기능적으로 조화-협동하듯이, 최극존재는 결국에는 운명 달성을 합성하는 역할을 한다. 최극존재는—영 핵심들 주변의 물리적 진화와, 물리적 진화의 돌아가며 소용돌이치는 권역들에 대한 영 핵심들의 생겨나는 통치—대우주 진화의 신(神) 정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개인성 즉: 가장 높은 의미에서는 파라다이스 개인성, 우주 감각에서는 창조자 개인성, 인간적 의미에서는 필사자의 개인성, 정점에 달한 또는 체험적으로 합쳐지는 의미에서는 최극자 개인성의 명령에 따라서 발생한다.

106:2.2 (1164.5) 최극자에 대한 개념은 영 개인과 진화 힘 그리고 힘-개인성 합성—진화하는 힘과 그리고 그에 의한 통치를 동반하는 영 개인성의 통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제공해야만 한다.

106:2.3 (1164.6)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영은 하보나를 통해 파라다이스로부터 온다. 에너지-물질은 공간 한가운데에서 진화하는 것처럼 보이며 하느님의 창조자 아들과 함께 무한한 영의 자손들에 의해서 조직화되어 힘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체험적이다; 창조자

신성들과 진화적 창조체들도 포함하여 폭넓은 살아있는 존재들을 감싸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활동행위이다. 대우주에서의 창조자 신성들의 힘 통제력은 시간-공간 창조계들에 대한 진화적 안착과 안정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서서히 팽창하며, 이것은 칠중 하느님의 체험적 힘이 꽃 피는 것이다. 그것은 우주 아버지의 조절자 증여로부터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생명 증여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신성 달성 전체 범위를 포함한다. 이것은 획득된 힘, 명시된 힘, 체험적 힘이다; 그것은 영원 힘, 헤아릴 수 없는 힘,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실존적 힘과 대조를 이룬다.

106:2.4 (1165.1) 칠중 하느님 자신의 신성 성취로부터 발생하는 이 체험적 힘은, 진화하는 창조계들의 성취된 체험적 지배에 대한 전능(全能)한 힘으로서, 합성화—전체화—에 의하여 신성의 응집된 본질특성들을 현시한다. 그리고 이 전능 힘은 이번에는, 최극자 하느님의 하보나 현존의 영 개인성과의 연합으로 하보나 세계의 외부 환형 지대에 있는 선도 구체에서 영-개인성 응집을 발견한다. 그리하여 체험적 신(神)은 시간과 공간의 힘 산물에, 중앙 창조계에

거주하는 영 현존과 신성한 개인성을 뒤덮어 지니게 함으로써 긴 진화적 투쟁을 완결시킨다.

106:2.5 (1165.2) 그래서 최극존재는 결국에는 이들 본질특성들에게 영 개인성을 부여하는 한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화하는 모든 것 전체를 포용하는 지점에 도달한다. 창조체들 그리고 심지어는 필사자들조차도 이 장엄한 사건 속에 참여하는 개인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최극자를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최극자를 그러한 진화적 신(神)의 참된 자녀들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하게 달성한다.

106:2.6 (1165.3) 네바돈의 미가엘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와 비슷한데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파라다이스 완전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화적 필사자들이 언젠가는 체험적 최극자와 친족관계를 달성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의 진화적 완전성을 진정으로 공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106:2.7 (1165.4) 최극자 하느님은 체험적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완벽하게 체험될 수 있다. 일곱 절대자들의 실존적 실체들은 체험이라는 기법에 의해 이해될 수 없으며;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개인성 실체들만이

기도-경배 태도 속에서 유한한 창조체의 개인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106:2.8 (1165.5) 최극존재의 완성된 힘-개인성 합성 속에는,
그렇게 연관될 수 있는 여러 삼극일체들의 절대성으로
연관된 모든 것들이 존재할 것이며, 장엄한 이 진화의
개인성은 체험적으로 달성될 수 있으며 모든 유한
개인성들에 의해 납득될 수 있다. 상승하는 존재들이 영
실존의 선결 조건인 일곱 번째 단계를 달성하였을 때,
체험될 수 있는 존재인 최극존재 안에서 그러한 것이 하위-
절대적인 차원에서 계시되듯이, 그 삼극일체들의
절대성과 무한성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치 실현을
거기에서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대 발전의 이들
단계의 달성은 아마도 대우주 전체가 빛과 생명 안에 조화-
협동하여 안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제 3 장. 초월적 3차 실체 관계적-연합

106:3.1 (1165.6) 아(亞)절대 고안건축자들이 계획을 결국
생겨나게 한다; 최극 창조자들이 그것을 실존 안으로
가져와 내어놓는다; 최극존재가 그것이 최극 창조자들에
의해 창조된 시간이었던 것으로 그에 따라, 그리고 그것이

주(主) 고안건축가들에 의한 공간 예측이었던 것처럼 그에 따라, 그것의 충만함을 더할 나위 없이 완성할 것이다.

106:3.2 (1165.7) 현재의 우주 시대 동안에 주(主)우주 의 행정-관리적 조화-협동 체제는 주(主)우주 고안자들의 기능이다. 그러나 현재 우주 시대가 종료될 때의 전능 최극자의 출현은 진화적인 유한(有限)이 체험적 운명의 첫 단계를 달성하였음을 암시한다. 이 사건은 첫 번째 체험적 삼위일체—최극 창조자들과 최극존재 그리고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의 연합—이 완성된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히 인도할 것이다. 이 삼위일체는 주(主) 창조의 더 앞서는 진화적 집대성활동을 초래하도록 되어 있다.

106:3.3 (1166.1)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정말로 무한 중의 하나이며, 어떤 삼위일체도 이 기원적 삼위일체를 포함하지 않는 무한성을 이룰 수 없다. 그러나 기원적인 삼위일체는 절대적인 신(神)들의 배타적 관계적-연합에서의 생겨남이다; 하위-절대적 존재들은 이러한 1차 관계적-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 다음에 출현하는 그리고 체험적인 삼위일체들은 창조체 개인성들의 공헌까지도 포용한다. 이것은 삼위일체

궁극자에게 확실히 참말이며, 거기에 주(主) 창조자 아들들이 최극 창조자 구성원들 사이에서 곧 바로 그렇게 현존하고 있는 것은, 이 삼위일체 관계적-연합 내에서 실재에서의 현존과 진정한 창조체 체험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조짐이다.

106:3.4 (1166.2) 최초의 체험적 삼위일체는 궁극적 생겨나는 것들의 집단적 달성을 제공한다. 집단적 관계적-연합들은 개별적 수용력들을 예상할 수 있게 하고 심지어는 초월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유한 차원을 넘어설 때에도 그러하다. 앞으로 도래할 시대들에서는, 일곱 초우주들이 빛과 생명 속에 안정을 이룩한 후에, 최종의 무리단들이 삼위일체 궁극자들에 의해 명령을 받으면서 그리고 최극존재 안에서 힘-개인성 통합을 이룩하면서 반드시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목적들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106:3.5 (1166.3) 과거 영원과 미래 영원의 거대한 우주 발달들 전체에 두루, 우리는 우주 아버지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의 확대를 간파하였다. 스스로 이신 이로서, 우리는 전체 무한성에 대한 그의 충만함을 우리는 철학적으로 가정하지만, 어떤 창조체도 그러한 가정을 체험적으로

포함할 수 없다. 우주들이 확대되면서 그리고 중력과 사랑이 시간-조직화 공간 속으로 뻗어 나가면서, 우리는 첫째근원이며 중심을 점점 더 납득할 수 있다. 우리는 분별불가 절대자의 공간 현존을 뚫고 들어가는 중력 활동을 목격하며, 신(神) 절대자의 신성 현존 속에서 진화하고 확대하는 영 창조체들을 발견하는 반면에 조화우주 진화와 영 진화 두 가지는 마음과 체험에 의해 유한 신(神) 차원들에서 최극존재로 통합되고 있으며 초월적 차원에서는 삼위일체 궁극자로서 조화-협동하고 있다.

제 4 장. 궁극의 4차 집대성활동

106:4.1 (1166.4)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궁극적 의미에서 확실하게 조화-협동하지만 이 관점에서는 자아-분별화된 절대로서 기능한다; 체험적인 삼위일체 궁극자는 초월적 존재를 초월적인 것으로 조화-협동시킨다. 영원한 미래에 있어서 이 체험적 삼위일체는 합일을 증강시킴으로써 궁극적 신(神)의 생겨나는 현존을 더욱 활성화시킨다.

106:4.2 (1166.5) 삼위일체 궁극자가 주요 창조를 조화-협동시키도록 되어 있는 반면, 궁극자 하느님은

주(主)우주 전체의 방향성구현에 대한 초월적 힘-개인성구현이다. 궁극자의 완성된 생겨남은 주(主) 창조의 완성을 내포하며 이 초월적 신(神)의 충만한 창발을 암시한다.

106:4.3 (1166.6) 궁극자의 충만한 창발에 의해 어떤 변화들이 시작되는 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최극자가 현재 하보나에서 영적(靈的)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시되어 있듯이, 궁극자는 또한 아(亞)절대 그리고 초(超)개인적 의미에서 거기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가 분별된 궁극자 대관들의 현재 행방이나 혹은 기능에 대해 소식들 듣지 못했더라도, 그들의 실존(實在)에 대한 소식은 들어왔다.

106:4.4 (1167.1) 그러나 궁극적 신(神)의 창발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행정-관리적 반향들에 상관없이, 그의 초월적 신성에 대한 개인적 가치들은 이 신(神) 차원의 실재화구현 속에 참여해 온 모든 개인성들에 의해 체험될 것이다. 유한 존재의 초월은 궁극적 달성 쪽으로만 인도될 수 있다. 궁극자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의 초월 속에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존재들과의 기능적 관계적-

연합을 위한 선천적인 수용능력에도 불구하고 하위-절대적이다.

제 5 장. 공동절대 또는 5번째-위상 관계적-연합

106:5.1 (1167.2) 궁극자는 최극자가 진화적-체험적 실체의 정점이듯이 초월적 실체의 절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체험적 신(神)들의 실재적 창발은 두 번째 체험적 삼위일체를 위한 기초를 놓는다. 이것이 최극자 하느님, 궁극자 하느님, 그리고 계시되지 않은 우주 운명 완료자의 연합인, 삼위일체 절대자이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는 잠재성의 절대자—신(神), 우주, 분별불가—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정적(假定的)인 능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절대자의 완성된 형태화는 하보나로부터 제4의 그리고 가장 바깥쪽의 공간 차원에 이르기까지 전체 주(主)우주 의 완성된 진화 이후에만 발생할 수 있다.

106:5.2 (1167.3) 이 체험적 삼위일체들이 체험적 신성의 개인성 본질특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神) 합일 달성에 특성을 부여하는 다른-개인성-외적 본질특성 모두에 대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이러한

설명이 먼저 조화우주의 통일에 대한 개인적 현상을 취급하는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들의 우주의 미(未)개인적 양상들이, 최극존재의 진화와 관련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힘-개인성 합성에 의해서 묘사되듯이 마찬가지로 통일의 과정을 겪도록 운명되어진 것이 사실이다. 최극자의 영-개인적 본질특성들은 전능자의 힘 진보성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그 두 가지는 최극마음의 알려지지 않은 잠재에 의해 보완된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의 최극자 하느님은 궁극적 신(神)의 개인-이외의 양상들로부터 분리되어 고려될 수 없다. 그리고 절대적 차원에서 신(神)과 분별불가 절대자들은 분리될 수 없으며 우주 절대자의 현존 속에서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106:5.3 (1167.4) 삼위일체들은, 기원적으로 그리고 저절로, 개인적이지 않지만, 개인성과 모순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포함하고 그것을 집단적 의미에서 미(未)개인적 기능들과 서로 관련시킨다. 그래서 삼위일체들은 항상 신(神) 실체인 반면 개인성 실체는 결코 아니다. 삼위일체의 개인성 양상들은 그것의 개별적 구성원들 속에 고유하게 존재하며, 개별적 개인들로서는

그 삼위일체가 아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의 집단적 형태로서만 삼위일체이다; 그것이 삼위일체이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포함된 모든 신(神)을 항상 내포한다; 삼위일체는 신(神) 합일이다.

106:5.4 (1167.5) 세 절대자들—신(神), 우주, 그리고 분별불가—은 삼위일체가 아닌데, 셋 모두가 신(神)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신(神)화된 존재만이 삼위일체가 될 수 있다; 다른 모든 관계적-연합들은 삼원일체들 또는 삼극일체들이다.

제 6 장. 절대 또는 제6-위상 집대성활동

106:6.1 (1167.6) 주(主)우주 의 현재 잠재가 궁극에 가까운 것은 틀림없겠지만 절대적인 상태는 거의 아니며, 우리는 하위-절대적 조화우주의 범위 안에서 절대적 의미-가치들의 충만한 계시를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절대자들의 무한한 가능성들에 대한 전체 표현을 이해하려고 시도함에 있어서 또는 신(神) 절대자의 미(未)개인적인 현재 차원에서의 절대자 하느님의 체험적 개인성구현을 시각화(視覺化) 시키려고 시도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한다.

주(主)우주 의 공간-무대는, 최극존재의 실재화구현을 위하여, 삼위일체 궁극자의 형태화와 충만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궁극자 하느님의 생겨남을 위하여, 그리고 심지어는 삼위일체 절대자의 시초를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두번째 체험적 삼위일체의 전체 기능에 관한 우리의 개념들은 널리 퍼져가는 주(主)우주 조차도 초월하는 어떤 것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에 우리가—주(主)우주 밖에 있는 광대한 어떤 우주—조화우주-무한성을 가정한다면 그리고 절대적 삼위일체의 최종적인 발전들이 그러한 초(超)궁극 활동 무대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삼위일체 절대자의 완성된 기능이 무한의 창조계들 속에서 최종적인 표현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모든 잠재들의 절대적인 실재화구현을 더할 나위 없이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게 된다. 언제까지나-확대하는 실체의 단편들의 집대성활동과 관계적-연합은, 그렇게 관계적-연합된 단편들 내에서 모든 실체의 포함에 비례하는 지위의 절대성에 접근할 것이다.

106:6.4 (1168.3)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그 삼위일체 절대자는,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전체 기능에 있어서 실제로 절대적이다. 하나의 절대적인 기능이 조건적이거나 분별화되거나 또는 한정된 다른 기초 위에서 어떻게 전체 표현을 성취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어떤 전체성 기능이라도 (잠재적 상태에서는) 제약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양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매우 확신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질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무조건적인 것이 또한 무제한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106:6.5 (1168.4) 아무튼, 이것에 대해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실존적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무한한 반면, 그리고 체험적 삼위일체 궁극자가 하위-무한인 반면, 삼위일체 절대자는 분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발단과 구성에 있어서 체험적이더라도, 그것은 잠재성을 갖는 체험적 절대자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106:6.6 (1168.5) 그러한 아득하고도 초인간 개념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간 마음에게 거의 유익하지 않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절대자의 영원 행위가, 잠재성을

소유하는 절대자들이 갖는 어떤 종류의 체험화 속에서 정점에 달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분별불가 절대자가 아니라면 우주 절대자에 관하여 이치에 맞는 결론으로 나타날 것이다; 최소한 우리는 그 우주 절대자가 정적이고 잠재적일 뿐만 아니라 그 단어들에 대한 전체 신(神) 의미에서 볼 때 연관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신성과 개인성의 상상할 수 있는 가치들에 관하여는, 예측되는 이 사건들이 신(神) 절대자의 개인성구현을 내포하며, 초개인적인 그 가치들의 출현과 절대자 하느님—체험적 신(神)들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존재—의 개인성 완성 속에 본질적으로 들어있는 그 초개인적 의미들의 출현을 내포한다.

제 7 장. 운명의 최종

^{106:7.1 (1168.6)} 무한 실체 집대성활동에 관한 개념들을 조성함에 있어서의 어려움들 중 일부는 그러한 모든 관념들이 우주적 발달의 최종의 어떤 것, 그 전에 항상 있을 수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종류의 체험적 실현을 포함한다는 사실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다. 그리고 양적인 무한이 최종 속에서 항상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체험적 발전의 어떤

부분도 결코 고갈될 수 없는 세 잠재적 절대자들 속에는
탐구되지 않은 가능성들이 항상 남아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영원 자체는 절대적이기는 하지만 절대 이상(以上)은
아니다.

106:7.2 (1169.1) 최종적 집대성활동이라는 모호한 개념조차도
분별불가한 영원의 결실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착상할 수 있는 어떤 미래의
시간에도 실천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106:7.3 (1169.2) 운명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신(神)의 의지적 행동에 의해 확립된다; 운명은 그의
절대성이 미래의 모든 발전 가능성들을 포함하는 위대한
세 잠재적 존재들의 광대함 속에 확립된다; 운명은 아마
우주 운명 완료자의 행동에 의해 성취 완료되고, 이 행동은
아마 삼위일체 절대자 안에 있는 최극자와 궁극자와
관련될 것이다. 어떤 체험적 운명도 체험하는 창조체들에
의해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이해될 수 있지만; 무한한
실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운명은 거의 이해할 수 없다.
최종자 운명은 신(神) 절대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실존적-체험적 달성이다. 그러나 신(神) 절대자는 우주

절대자의 덕분으로 분별불가 절대자와 영원 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가능성에 있어서 체험적인 이 세 절대자들은 실재적으로 실존하며, 더욱이 무제한적이고, 무시간적이며, 무공간적이고, 끝이 없으며, 측량할 수 없다—진정한 무한이다.

106:7.4 (1169.3) 그러나 목표 달성의 불가능성은 그러한 가정적 운명들에 관한 철학적 이론화를 방해하지 않는다. 신(神) 절대자의 실재화 할 수 있는 절대적 하느님으로서의 현실화는 실천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최종 결실은 이론적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조화우주-무한 속에서의 분별불가 절대자의 간섭은 끝없는 영원의 미래 속에서 가늠할 수없이 멀리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러한 가설은 정당하다. 필사자들, 모론시아 존재들, 영들, 최종자, 초월자, 그리고 다른 존재들은, 우주 자체들 그리고 실체의 모든 다른 위상들과 함께, 가치에 있어서 절대적인 동시에 잠재적으로 최종적인 운명을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지만; 어떤 존재 또는 우주가 그러한 운명의 모든 양상들을 언제라도 완벽하게 달성하게 되리라는 점에 우리는 의혹을 품고 있다.

106:7.5 (1169.4) 너희들 중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이해 속에서 성장하더라도, 너희 마음은 아버지-스스로 이신 이의 계시되지 않은 무한성, 영원의 모든 순환들에 두루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항상 남아있게 될 탐구되지 않은 광대함에 의해서 항상 놀라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느님께로 아무리 많이 다가가더라도, 거기에는 그에 관한 훨씬 더 많은 것들, 너희가 상상하지도 못할 실체가 항상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기로는 이것이 초월적 차원들에서 참된 것과 똑같이 유한 실존의 권역에서도 그러하다. 하느님을 향한 탐구는 끝이 없다!

106:7.6 (1169.5) 최종적인 의미에서 하느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력은 어떤 면에서도 우주 창조체들을 낙담시키지 않는다; 정말로 너희는 칠중자와 최극자 그리고 궁극자의 신(神) 차원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 하느님의 무한한 실현이 영원한 아들에게 그리고 영원 실존에 대한 그들의 절대적 상태에 있는 공동 행위자에게 의미하는 그것을 너희에게 의미한다. 창조체를 조금도 괴롭히지 않으면서, 하느님의 무한성은 끝없는 미래에 두루 상승하는 개인성이 그의 앞에서

영원조차도 고갈시키거나 종결시키지 않을 개인성 발달과
신(神) 관계적-연합에 대한 가능성들을 소유할 것에 대한
최극의 보증이다.

106:7.7 (1169.6) 대우주의 유한한 창조체들에게는 주(主)우주 의
개념들이 거의 무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亞)절대 고안건축가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그곳에서의
미래에 대한 그 관계성과 끝남이 없는 스스로 이신 이
안에서의 상상되지 않는 발달들을 인지하고 있다. 공간 그
자체까지도 궁극적인 상황, 중간-공간에 있는 고요한
지역들의 상대적 절대성 안에서의 분별된-자격의 조건에
불과하다.

106:7.8 (1170.1) 전체 주(主)우주 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먼 미래적 영원 시점에, 우리는 그것의 전체
역사를 단지 그 시초로서, 미지의 무한성 속에서 더욱 크게
그리고 더욱 마음을 사로잡는 변형들을 위한 확실하게
유한적이면서도 초월적인 기초들의 창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되돌아보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한 미래적
영원의 순간에 주(主)우주 는 여전히 나이가 어린것으로

보일 것이다; 정말로 그것은 결코 끝이 없는 영원의 무한한 가능성들 앞에서 항상 젊은 상태가 될 것이다.

106:7.9 (1170.2) 무한한 운명 달성의 불가능성은 그러한 운명에 관한 관념들의 적용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으며, 우리가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세 절대 잠재들이 언제든지 완벽하게 실재화될 수가 있다면, 실체 전체의 최종적 집대성활동을 상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발전적 실현은 그들의 연합이 스스로 이신 이의 참복성, 영원의 정지된 실체들, 모든 미래성에서의 미정인 가능성들, 그리고 그 보다 더한 것을 이루고 있는 세 잠재성인, 분별불가 절대자, 우주 절대자, 그리고 신(神) 절대자들의 완성된 실재화구현 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

106:7.10 (1170.3) 그러한 생겨남은 최소한을 말하더라도 아주 먼 훗날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삼위일체들의 기능구조들, 개인성들 그리고 관계적-연합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아버지-스스로 이신 이의 일곱 절대 현상들의 재결합에 대한 이론적 가능성을 발견하였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존적 지위의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 뒤이어 나타나는 체험적 본성과

기원의 두 삼위일체들을 에워싸는, 삼중 삼위일체의 개념과 얼굴을 맞대도록 만든다.

제 8 장.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106:8.1 (1170.4)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자연본성은 인간 마음에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영원성 실현의 이론적 무한성 안에서 현시되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체험적 무한성의 전체성에 대한 실재적 요약이다.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안에서, 체험적으로 무한한 것들은 실존적으로 무한한 것들과 정체성을 달성하며, 그 두 가지는 체험-이전, 실존-이전의 스스로 이신 이 안에 하나로 존재한다.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는 열 다섯의 삼원일체들 그리고 연관된 삼극일체들 안에 내포된 전체에 대한 최종적 표현이다. 최종성은 상대적인 존재들에게는 그들이 실존적 또는 체험적이다 라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상대적 존재들로 제시되지 않을 수 없다.

106:8.2 (1170.5)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는 여러 위상들 속에 존재한다. 그것은 인간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들이 상상하는 것들을 동요시키는 가능성과 확률 그리고

필연성을 포함한다. 그것은 천상(天上)의 현자들도 예견하지 못할 암시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암시하는 것들이 삼원일체들이며, 그 삼원일체들은,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106:8.3 (1170.6)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를 묘사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그 세-차원 개념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06:8.4 (1170.7) 1. 세 삼위일체들의 차원.

106:8.5 (1170.8) 2. 체험적 신(神)의 차원.

106:8.6 (1170.9) 3. 스스로 이신 이의 차원.

106:8.7 (1170.10) 이것들은 증가하는 통일의 차원들이다.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는 실재적으로 첫 번째 차원인 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차원들은 첫 번째 차원의 통일-파생물 이다.

106:8.8 (1171.1) 첫 번째 차원: 최초의 이 관계적-연합 차원에서는 독특성, 신(神) 개인성들의 집단화에도 불구하고, 세

삼위일체들의 기능이 완전하게 동조되는 것으로 믿어진다.

106:8.9 (1171.2) 1.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세 파라다이스 신(神)들—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의 관계적-연합.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삼중적 기능—절대 기능, 초월적 기능(궁극위 삼위일체), 유한 기능(최극위 삼위일체)—을 내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그 어느 때든지 그리고 그 모든 때에서 그 어떤 것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이다.

106:8.10 (1171.3) 2. 궁극 삼위일체. 이것은 최극 창조자들, 최극자 하느님과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의 신(神) 관계적-연합이다. 이것이 이 삼위일체의 신성 양상들에 대한 타당한 묘사인 반면, 어쨌든 그 신성 양상들과 완전하게 조화-협동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 삼위일체의 다른 현상들이 존재함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106:8.11 (1171.4) 3. 절대 삼위일체. 이것은 모든 신성 가치들에 관하여 최극자 하느님과 궁극자 하느님 그리고 우주 운명 완료자의 집단화이다. 이러한 삼원적 집단화의 특정한 다른 현상들은 확대하는 조화우주에 있어서 신성이 아닌

다른 것과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것들은, 체험적 신(神)의 힘과 개인성 양상들이 현재 체험적 합성의 진행 과정에 있는 것과 똑같이, 신성 현상과 통합되고 있다.

106:8.12 (1171.5) 이들 세 삼위일체들이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안에서 이룩한 관계적-연합은 실체의 무제한적인 집대성활동이라는 어떤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집단화는 원인, 중간, 그리고 최종들을 포함한다; 시작자, 실현자, 그리고 성취자들을 포함한다; 시작, 실존, 그리고 운명들을 포함한다. 아버지-아들 협력은 아들-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영-최극자가 되고 계속하여 최극-궁극자와 궁극-절대자가 되고, 심지어는 절대자와 아버지-무한자—실체의 순환의 완성—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신성과 개인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첫째 위대한 근원이며 중심이, 자아-실존의 절대성으로부터, 자아-게시의 무한함을 거쳐, 자아-실현의 최종에 이르기까지—실존하는 절대로부터 체험의 최종에 이르기까지—영원의 순환 주위에서 실체의 한계-없음을 자아-실현한다.

106:8.13 (1171.6) 두 번째 차원: 세 삼위일체들의 조화-협동은 필연적으로 체험적 신(神)들의 연관적 연합을 내포하는데, 그들은 이 삼위일체들과 근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두 번째 차원의 자연본성은 때로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왔다:

106:8.14 (1171.7) 1. 최극자. 이것은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창조자-창조적 자녀들과의 체험적 연락 속에 이루어지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합일에 대한 신(神) 귀결이다. 최극자는 유한한 진화의 첫 번째 단계의 완성에 대한 신(神) 체현이다.

106:8.15 (1171.8) 2. 궁극자. 이것은 두 번째 삼위일체, 신성의 초월적이며 아(亞)절대 개인화구현의 결국 생겨난 합일체에 대한 신(神) 귀결이다. 궁극자는 여러 본질특성들의 가변적으로 간주되는 합일 속에 존재하며, 그것에 대한 인간의 개념은, 최소한 통제를 지도하고 개인적으로 체험 가능하며 긴장 속에서 통합하는 궁극위의 그 위상들을 포함하기에 적합하겠지만, 결국 생겨난 신(神)의 계시되지 않은 다른 많은 측면들이 존재한다. 궁극자와 최극자는 서로 비슷한 반면, 동일하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궁극자는 단순히 최극자가 확장된 것이 아니다.

106:8.16 (1172.1) 3. 절대자.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두 번째 차원에 있어서의 세 번째 구성원의 성격에 적용되는 많은 이론들이 존재한다. 절대자 하느님은 이 관계적-연합 안에 삼위일체 절대자의 최종적 기능에 대한 개인성 귀결로서 의심할 여지없이 참여되지만, 신(神) 절대자는 영원 지위의 실존적 실체이다.

106:8.17 (1172.2) 세 번째의 이 구성원에 관한 개념 상충은 그러한 구성원에 대한 전제가 실제로 오직 하나의 절대자를 내포한다는 사실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 절대자들의 체험적 통일을 하나로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바로는, 무한 속에서 그리고 실존적으로 볼 때, 하나의 절대자만이 존재한다. 세 번째의 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그에게처럼 그것이 가장 분명치 못한 반면, 그러한 것이 상상도 못한 연락과 조화우주 현시활동의 어떤 형태로 신(神) 절대자와 우주 절대자 그리고 분별불가 절대자로 구성될 수 있음이 종종

가정된다. 분명한 것은,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가 세 절대자들의 충만한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완벽한 기능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며, 세 절대자들은 모든 무한 잠재들의 완벽한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될 수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106:8.18 (1172.3)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세 번째 구성원이 우주 절대자로 생각된다면, 만일 이 개념이 우주 절대자를 정적이고 잠재적인 존재로서 뿐만 아니라 연관적인 존재라고 상상한다면, 그것은 아마 진리에 대한 최소한의 왜곡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 신(神)의 기능에 있어서의 창조적이고 진화적인 측면들에 대한 관계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106:8.19 (1172.4)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에 대한 완벽한 개념이 형성되기는 어렵더라도, 분별화되는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만약에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두 번째 차원이 기본적으로 개인적이라고 생각된다면, 최극자 하느님과 궁극자 하느님 그리고 절대자 하느님의 연합은, 이들 체험적 신(神)들에게 선조가 되는 개인적 삼위일체들의 연합에서의 개인적 반향으로 묘사하는 것이

매우 가능하게 된다. 우리는 이들 세 체험적 신(神)들이, 첫 번째 차원을 이루는 그들의 조상이고 원인이 되는 삼위일체들이 점점 더 합일하는 직접적인 결과로 두 번째 차원에서 확실하게 통합하리라는 견해를 과감하게 제시한다.

106:8.20 (1172.5) 첫 번째 차원은 세 삼위일체들로 이루어지며; 두 번째 차원은 체험적-진화된, 체험적-결국 생겨난, 그리고 체험적-실존적 신(神) 개인성들의 개인성 관계적-연합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삼위일체들의 완벽한 삼위일체를 납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개념적 어려움에도 상관없이, 두 번째 차원에서의 이 세 신(神)들의 개인적 관계적-연합은 장엄자가 신(神)구현화 되는 현상 안에서 우리 자신의 우주 시대에 현시가 시작되었는데, 그는 이 두 번째 차원에서 신(神) 절대자에 의해 실재화 되었고, 궁극자를 통하여 그리고 최극존재의 최초의 창조적 명령에 반응하여 행동한다.

106:8.21 (1172.6) 세 번째 차원: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두 번째 차원 위에 세워진 분별불가적 가정(假定) 속에는, 무한의 영원 속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거나 또는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실체에 대한 모든 현상의 상호관련성이 포용되어 있다. 최극존재는 영(靈)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며 힘 그리고 체험이다. 궁극자는 이 모든 것이며 반면에 신(神) 절대자와 우주 절대자 그리고 분별불가 절대자가 결합된 개념에서는 훨씬 더 크고, 거기에는 모든 실체 실현의 절대 최종이 포함된다.

106:8.22 (1172.7) 최극자와 궁극자 그리고 완벽한 절대자의 연합 속에서는, 스스로 이신 이에 의해 기원적으로 부분화된 그리고 무한성의 일곱 절대자들의 출현으로 귀결된 무한의 저들 측면들이 기능적인 재-조합이 발생할 수 있다. 우주의 현자들이 비록 이것을 가장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질문을 자주 물어본다: 만일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두 번째 차원이 삼위일체 합일을 언제든지 성취할 수 있다면, 무엇이 그러한 신(神) 합일의 결과로 발생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체험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스스로 이신 이의 실현으로 직접 인도하게 될 것임을 자신하고 있다. 개인적 존재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알 수 없는 스스로 이신 이가 이미 아버지-무한자로 체험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었다. 비(非)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절대적 운명들이 의미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오직 영원만이 분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멀리 있는 생겨남이 개인적 창조체들일 것이라고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개인성들의 최종 운명이 동일한 이 개인성들의 우주 아버지를 최종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추론한다.

106:8.23 (1173.1) 우리가 과거 영원 속에서 스스로 이신 이를 철학적으로 상상할 때, 그는 유일한 존재이며, 그 외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 영원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이신 이가 실존적인 것으로서 변화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광대한 체험적 차이를 바라보려는 경향을 우리는 갖고 있다. 스스로 이신 이에 대한 그러한 개념은 충만한 자아-실현을 내포한다.—그것은 스스로 이신 이의 자아-계시 속에 의지적으로 참여하게 된 그리고 무한의 전체 세계의 절대적인 의지적 부분들, 절대적인 아버지의 최종적 아들들로 영원히 남아있게 될 개인성들의 한계 없는 은하계를 포옹한다.

제 9 장. 실존적 무한 통일

106:9.1 (1173.2)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개념 속에서 우리는 무한한 실체의 가능한 체험적 통일을 가정하며,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먼 훗날의 영원인 절대적으로 먼 훗날에 일어날 수 있다고 이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든 우주 시대와 미래의 우주 시대 중에서처럼, 바로 이 시대 속에서 무한의 실재적이고 현재적인 통일이 있다; 그러한 통일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속에 실존한다. 체험적 실체로서의 무한 통일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먼 훗날의 일이지만, 무한의 분별불가적 합일은 우주 실존의 현재 순간을 지배하며, 모든 실체의 다양성을 실존적 장엄성, 곧 절대인 것과 연합시킨다.

106:9.2 (1173.3) 유한한 창조체들이 더할 나위 없는 영원의 최종 차원들에서의 무한한 통일을 생각하려고 시도할 때, 그들은 자기들의 유한한 실존 속에 선천적으로 있는 지적 한계들에 직면한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체험은 창조체 개념에게 방해물들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간이 없고 공간에서 분리되며 체험이 제외된다면 어떤 창조체라도 우주 실체에 대한 제한된 이해마저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시간에 대한 감수성이 없이는, 어떤

진화적 창조체도 순차되는 관계들을 감지하지 못할 것이다. 공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어떤 창조체도 동시성의 관계들을 측량하지 못할 것이다. 체험이 없이는 어떤 진화적 창조체도 존재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무한성의 일곱 절대자들만이 실제로 체험을 초월하고, 이것들도 특정한 차원에서는 체험적일 것이다.

106:9.3 (1173.4) 시간과 공간과 체험은 상대적 실체 인식에 있어서 필사자에게 가장 큰 도움자가 되지만, 실체 인식을 완성함에 있어서 그에게 가장 무서운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 필사자들과 다른 많은 우주적 창조체들은 잠재들을 공간 속에 실재화 되는 것으로 그리고 시간 속에 결실을 향하여 진화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지만, 이러한 전체 과정은 파라다이스에서 그리고 영원 안에서 실재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시간-공간 현상이다. 절대적인 차원에는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잠재들은 실재적인 것들로 인식되어 거기에 존재할 것이다.

106:9.4 (1173.5) 모든 실체의 통일에 대한 개념은, 이 우주 시대 또는 다른 어느 우주 시대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중적이다: 실존적 그리고 체험적. 그러한 합일은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안에서 체험적인 실현의 과정 중에 있지만, 이러한 삼중 삼위일체의 명백한 실재화구현의 정도는 조화우주 안에 있는 실체의 분별된-자격들과 불완전들이 사라지는 것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그러나 실체의 전체 집대성활동은 분별불가적으로 그리고 영원하게 그리고 실존적으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바로 그 우주 순간에서, 무한한 실체가 절대적으로 통합된다.

106:9.5 (1174.1) 체험적인 관점과 실존적 관점에 의해 만들어진 역설은 불가피하며,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가 필사자들이 오직 시간-공간 상대성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각각 하나의 영원 관계라는 사실에 부분적으로 입각하고 있다.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점차적인 체험적 실재화구현에 대한 인간 개념—시간 관점—은,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화구현—영원 관점—임을 추가적으로 가정함으로써 보충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 두 관점들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유한한 필사자들에게 받아들이라고 제안하는

진리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무한의 실존적 통일이라는 것과, 체험적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실재적 현존과 완성된 현시활동을 간파하지 못하는 무능력이 부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한 상호적 왜곡에 기인된다는 것이다:

106:9.6 (1174.2) 1. 제한된 인간적 관점, 분별불가적인 영원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력.

106:9.7 (1174.3) 2. 불완전한 인간적 지위, 체험하는 것들이 절대적인 차원에서 멀리 떨어짐.

106:9.8 (1174.4) 3. 인간 실존의 목적, 인류가 체험이라는 기법에 의해 진화하도록 계획되어 있음과,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체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 오직 절대자만이 실존적인 동시에 체험적이다.

106:9.9 (1174.5)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서 우주 아버지는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스스로 이신 이이며, 아버지를 무한으로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유한한 한계 때문이다. 실존적, 단독의, 도달할 수 없는 스스로 이신 이 이전-

삼위일체에서의 개념과, 삼위일체들의 체험적인 이후-삼위일체이며 그리고 도달할 수 있는 스스로 이신 이에서의 가정은 하나이며 그리고 동일한 가설이다; 어떤 실재적 변화도 무한자 속에서 발생되지 않았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발전들은 실체를 수용하고 그리고 조화우주적인 올바른 이해에 대한 증가된 수용력 때문이다.

106:9.10 (1174.6) 스스로이신이는 결국 이전의 모든 실존적인 것들 그리고 이후의 모든 체험적인 것들이 존재해야만 한다. 이 관념들이 인간 마음 안에서 영원과 무한에 대한 역설들을 규명하지 못하는 반면, 적어도 그러한 유한한 지능들을 자극하여, 결코-끝남이 없는 이들 문제, 구원자별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최종자로서의 너희에게, 그리고 널리 퍼진 우주 안에서 너희 영원한 생애의 끝남이 없는 미래에 두루 그곳에서의 너희의 호기심을 돋우게 될 이들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잡아채도록 만들 것이다.

106:9.11 (1174.7) 조만간, 모든 우주 개인성들은 영원에 대한 마지막 탐색이 무한에 대한 끝없는 탐험,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절대성으로 들어가는 끝없는 탐험 여행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모든 창조체
성장이 아버지 정체화구현에 비례함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한 자체의 끝없는
가능성에 이르는 영원한 신분증임을 납득하게 된다.
필사자들은 언젠가는 무한자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의
성공이 아버지를-닮음의 성취에 비례한다는 사실과, 이
우주 시대 안에서 아버지의 실체들이 신성의 본질특성들
안에 계시된다는 사실을 실현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신성의 본질특성들은 신성하게 사는 삶의 체험 안에서
우주적 창조체들에 의해 개인적으로 합당하게 소유된다,
그리고 신성하게 산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실재적으로
실천함을 의미한다.

^{106:9,12 (1175.1)} 물질적이고 진화적이며 유한한 창조체들에게는,
아버지의 뜻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에 근거를 두고있는
일생이 개인성 경기장 안에서 영 최극위의 달성으로 직접
인도하며, 그러한 창조체들을 아버지-무한자에 대한
이해에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리고 간다. 그러했을 때
아버지 일생이란 진리에 근거를 두고 아름다움에
민감하며 선(善)으로 지배되는 것이다. 그러했을 때
하느님을-아는 개인은 경배로 인하여 내적으로 빛을

받게되고, 외적으로는 모든 개인성들의 우주적 형제신분, 자비로 가득 차고 사랑으로 동기가 유발되는 그러한 봉사의 사명활동에 헌신하게 된다. 그러면서 한편 모든 이러한 일생 본질특성은 조화우주 지혜, 자아-실현, 하느님-발견, 그리고 아버지 경배에서의 언제까지나-상승하는 차원들 위에서, 진화하는 개인성 안에서 통합된다.

106:9.13 (1175.2)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107 편 생각조절자의 기원과 본성

107:0.1 (1176.1) 우주 아버지 자신은, 우주의 가장 중심에 있는 파라다이스에 거하고 계실지라도, 시간의 수 없이 많은 그의 자녀들 마음속에 신비 감시자들로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실재적으로는 우주 전체에 계신다. 영원한 아버지는 그의 필사 아들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자 동시인 곳으로 물러나 있으며, 그리고 친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107:0.2 (1176.2) 조절자들은 사람들의 혼 속에 육신화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실재성이다; 그들은 필사자 마음 속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의 영원한 생애에 대한 진정한

약속이다; 그들은 사람이 한 단계 한 단계, 우주의 우주를 지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신성한 현존을 실재적으로 도달하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살아가는 신성한 기법을 점진적으로 습득함에 따라 시간 속에서 미리-맛볼 수 있는, 사람의 완전해진 최종자 개인성의 본질이다.

107:0.3 (1176.3) 자신이 완전함과 같이 사람에게 완전해질 것을 명하시는 하느님은, 그렇게 정해진 하늘의 운명을 달성하는 사람의 체험적 상대자가 되기 위하여 조절자로 내려왔다.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는 하느님의 단편은, 사람을 찾고 그리고 사람이 비록 육신의 때에 있어도 그 아들관계를 찾으려고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온, 이 신성한 조절자와 관계적-연합으로 사람은 우주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절대적이고 분별불가한 보증이다.

107:0.4 (1176.4) 창조자 아들을 본 모든 필사자는 우주 아버지를 본 것이며, 신성한 조절자가 내주하는 그는 파라다이스 아버지께서 내주 하신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내주하는 조절자의 인도를 따르는 모든 필사자는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조절자 현존의 의식은 하느님 현존의 의식이다. 사람의 진화하는 혼과 조절자의

영원한 융합은, 신(神)의 우주 연관-동료로서 하느님과 영원히 연합하는 사실적 체험이다.

107:0.5 (1176.5) 사람의 안에서 하느님처럼 되기를, 파라다이스에 들어가기, 그리고 그곳에서 신(神)의 실재적 개인 앞에서 신성한 선물의 무한한 근원을 경배하려는 억제할 수 없는 갈망과 멈출 수 없는 바램을 일으키는 것이 조절자이다. 조절자는 실재적으로 필사자 아들을 그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와 연결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더욱 가깝게 끌어당기는 살아있는 현존이다. 조절자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람의 떨어져있는 거리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보편성에 대비된 그의 부분성의 정도로 인하여 야기되는 거대한 우주 긴장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상적으로 동등화를 이루는 것이다.

107:0.6 (1176.6) 조절자는 유한한 창조체의 마음속에 갇혀있는, 그곳에서 그 창조체의 선택에 따라서 이 일시적인 하느님과 사람의 연합을 결국에는 더할 나위 없이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끝남이 없는 우주 봉사를 위한 새로운 존재의 계층으로 참되게 실재화하는, 무한 존재의 절대 본질이다. 조절자는 하느님이 사람의 아버지라는 진리가 사실이

되도록 하는 신성한 우주실체이다. 조절자는 사람의 혼이 하느님을 향하도록 계속적으로 그리고 잘못됨이 없이 가르쳐주는 확실한 사람의 우주 나침반이다.

^{107:0.7 (1177.1)} 진화하는 세계에서 의지 창조체들은 존재에서의 세 가지 일반적인 발전 단계를 거친다: 조절자가 도착할 때부터 비교적 충분히 성장하기까지, 유란시아에서는 약 스무 살까지, 감시자는 때때로 생각 변경자라고 정의된다. 이 때부터 분별력의 나이를 달성하기 까지, 약 마흔 살에 이르기까지, 신비 감시자는 생각 조절자라 불린다. 분별력의 달성에서부터 육신으로부터 해방을 이루기까지 그들은 종종 생각 통제자로서 언급되고 있다. 필사자 일생에서의 이들 세 위상은, 마음의 복제와 혼의 진화에서 조절자가 진보하는 세 단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제 1 장. 생각 조절자의 기원

^{107:1.1 (1177.2)} 생각 조절자는 기원적인 신(神)의 본질임으로, 누구도 그들의 본성과 기원에 대하여 권위 있게 강연할 수는 없다; 나는 오직 구원자별의 전승들과 유버사에서 믿고 있는 것들을 전할뿐이고, 우리가 이 신비 감시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대우주 전체에 걸친 그들과
연관되어있는 실존개체를 설명할 뿐이다.

107:1.2 (1177.3) 생각 조절자가 증여되는 양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견해들이 있지만, 그들의 기원에 대하여는 그런
차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그들이 첫째근원이며
중심인 우주 아버지로부터 직접 나아왔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들은 창조된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은 무한한
하느님의 사실적 현존을 구성하고 있는 단편화된
실존개체이다. 계시되지 않은 많은 그들의 연관자들과
함께, 조절자들은 혼합되거나 희석되지 않은 신성이며,
신(神)의 분별불가하고 그리고 줄어들지 않은 부분들이다;
그들은 하느님의 것이며,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한, 그들은
하느님이시다.

107:1.3 (1177.4)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절대성에서 분리된
실존으로 개별화되어진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
한다; 그들의 숫자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인간 마음에
내주하기 위하여 시간의 행성들에 그들이 도착하기까지의
그들의 생애들에 대하여 조금만 안다. 그러나 이때로부터
우리는 그들의 삼원적 운명 완결; 어떤 필사 상승자와의

융합에 의한 개인성의 달성, 우주 아버지의 명령에 의한 개인성의 달성, 또는 생각 조절자들의 부여된 임무들로부터 해방이 포함되는 그들의 조화우주 진보 과정에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07:1.4 (1177.5)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조절자들이 우주의 팽창에 따라, 그리고 조절자와의 융합을 위한 후보자의 숫자가 늘어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개별존재화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하느님 자신처럼, 그의 불가해한 자연본성의 이 단편들이 실존적으로 무한할 수 있듯이; 숫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조절자들에게 적용하려는 시도가 잘못된 가능성도 똑같이 있다.

107:1.5 (1177.6) 생각 조절자의 기원에 대한 기법은 우주 아버지의 계시되지 않은 기능들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다른 어떤 절대 연관자들도 아버지의 단편(斷片)들의 생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믿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조절자들은 순전히 그리고 영원하게 신성한 선물이다; 하느님의 것이고 하느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느님과 같은 것이다.

107:1.6 (1177.7) 융합 창조체들에 대한 그들의 관계에서 그들은 하느님은 영이시라는 선언을 깊이 확신시켜 주는 영적 사명활동과 천상의 사랑을 계시해 준다. 그러나 이 초월적인 사명활동 외에도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에게 계시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우주 아버지께서 시간의 제한을 받는 창조체들에게 그들의 개인성의 한 부분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납득하지 못한다. 또한 파라다이스 최종자들의 상승하는 진보가 이러한 하느님과 사람의 천상의 동반자관계에 선천적으로 있을, 충분한 가능성도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아버지의 단편들은, 하느님께 절대로서 달성되는 가능성을 끌어안고 있는 운명을 지닌 그들 창조체들에게 절대 하느님의 선물임이 틀림없다.

107:1.7 (1178.1) 우주 아버지께서 그의 전(前)개인적 신(神)을 단편화하는 것처럼, 무한한 영도 그의 전(前)마음의 영의 부분들을 개별화시킴으로써, 영-융합 계열들의 생존하는 필사자들의 진화하는 혼에 내주하고 그리고 실재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영원한 아들의 본성은 그렇게 단편화 할 수 없다; 기원 아들의 영은 퍼져나가거나

따로 따로 개인성이 될 수 있다. 아들-융합 창조체들은 영원한 아들의 창조자 아들들의 개별존재화된 증여들과 연합되어있다.

제 2 장. 조절자의 분류

107:2.1 (1178.2) 조절자들은 순수한 실존개체로써 개별존재화되어 있으며, 모두는 해방되거나, 융합되거나, 또는 개인성구현된 감시자들이 되도록 운명되어있다. 우리는 생각 조절자들의 일곱 계층이 있다는 것을 납득하고 있지만, 이 구분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은 종종 계층의 다름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107:2.2 (1178.3) 1. 순결의 조절자들: 진화적인 후보자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한 생존을 위한 그들의 최초로 임무에 봉사하는 존재. 신비 감시자들은 신성한 본성에서 영원히 동일하다. 그들은 또한 신성별에서 처음으로 나올 때 체험적 본성에 있어서도 동일한데, 그 후에 이루어지는 체험적 차이는 우주 사명활동에서의 실재로 체험한 것들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107:2.3 (1178.4) 2. 진보된 조절자들: 시간 창조체의 정체성과 그리고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지역우주 현시활동의

영에서의 개별존재화된 하나의 조각 사이에 최종 융합이 일어나는 세계에서, 의지 창조체들과 함께 한 기간 또는 여러 기간 동안 여러 세계들에서 봉사한 존재들.

107:2.4 (1178.5) 3. 최극 조절자들: 진화하는 세상에서 시간의 모험에 봉사한 이 감시자들, 그러나 그들의 인간 동반자들이 어떤 이유로 영원한 생존을 거부하였고, 그리하여 다른 진화하는 세계들에서 다른 필사자들 속에서 다른 모험에 그 후로 할당된 자들. 최극 조절자가 순수 감시자보다 신성하지는 못하더라도, 보다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 마음속에서 체험이 적은 조절자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

107:2.5 (1178.6) 4. 사라진 조절자들: 여기에서 신비 감시자들의 생애를 추적하려는 우리들의 노력들에 중단이 발생한다.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봉사의 네 번째 단계가 있다. 멜기세덱들은 이 네 번째 단계의 조절자들이 우주들의 우주를 배회하는 분리된 임무에 있다고 가르친다. 단독 메신저들은 이들이 첫째근원이며 중심과 같이 있으며, 아버지 자신과 새롭게 되는 관계적-연합의 기간을 즐긴다고 믿고자 한다. 그리고 조절자가 주 우주를

전재(全在)하는 아버지와 같이 동시적으로 배회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

107:2.6 (1178.7) 5. 해방된 조절자들: 진화하는 구체들의 필사자들을 위한 시간의 봉사에서 영원히 해방된 이 신비 감시자들. 그들의 역할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

107:2.7 (1179.1) 6. 융합된 조절자들:—최종자들—초우주들에서 상승하는 창조체들과 하나가 되는 존재들. 파라다이스 최종의 무리단의 시간 상승자들의 영원한 동반자들. 생각 조절자들은 통상적으로 시간의 상승하는 필사자와 융합하고 그리고 그렇게 상승자별의 출입에 등록된다; 그들은 상승하는 존재의 경로를 따른다. 상승하는 진화적 혼들과 융합하면 조절자는 우주의 절대 실존 차원으로부터 전환되어 상승하는 개인성과 기능적으로 관계적-연합하는 유한한 체험차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존으로서의 신성한 본성의 모든 특성들을 보유하면서도, 융합된 조절자는 생존하는 필사자의 상승 생애와 불가분의 연결을 이룬다.

107:2.8 (1179.2) 7.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 육신화 한 파라다이스 아들과 함께 사명활동하는 영들과, 필사자 안에

내주하는 동안 비상한 업적을 성취하였으나 그들의 주체들이 생존을 거절한 다수의 조절자. 그러한 조절자들이 초우주의 임무를 위해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지시에 따라 개인성구현되었다고 우리들이 믿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들이 있다.

^{107:2.9 (1179.3)} 이들 신비로운 하느님의 단편들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다; 우주임무에 따라서, 개별적인 필사자의 내주에서의 성취하는 정도에 따라서, 또는 융합을 위한 필사 후보자의 인종 계통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다.

제 3 장. 조절자의 신성별 고향

^{107:3.1 (1179.4)} 모든 일곱 초우주들에서의 봉사에 신비 감시자들을 보내고, 관리하고, 지도하고, 귀환하는 것에 관계되는 모든 우주 활동들은 신성별의 신성한 구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아는 한, 조절자들과 아버지의 다른 실존개체들만이 그 구체에 있다. 아직 계시되지 않은 무수한 전(前)개인적 실존개체들이 조절자들과 함께 신성별을 고향 구체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들 연관-동료 실존개체들이 신비

감시자들의 현재와 미래 사명활동을 위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알지 못한다.

107:3.2 (1179.5) 생각 조절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들은 고향으로 보이는 영역, 신성별로 돌아간다; 아마 이러한 체험의 일환으로, 아버지의 파라다이스에 있는 개인성뿐만 아니라 이 비밀구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버지의 신성에 대한 특별한 현시활동과도 실재적인 접촉을 할 것이다.

107:3.3 (1179.6) 우리가 파라다이스에 있는 일곱 개의 비밀구체에 대하여 다소 알고 있지만, 다른 곳들에 비교한다면 신성별에 대하여는 거의 모르는 것과 같다. 높은 영적 계층의 존재들은 오직 세 가지의 신성한 명령을 받아들이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07:3.4 (1179.7) 1. 선배들과 상급자들의 체험과 자질에 대하여 항상 합당한 존중을 보여야 한다.

107:3.5 (1179.8) 2. 후배들과 종속들의 한계와 무(無)체험에 항상 동정심이 있어야 한다.

107:3.6 (1179.9) 3. 신성별 해안에 착륙을 시도하지 마라.

107:3.7 (1179.10) 내가 신성별에 가는 것은 전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나는 가끔 심사숙고했다, 아마 나는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 외에는 어떤 거주하는 존재들도 볼 수가 없으며, 그리고 또 그러한 존재들은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나 실제적인 가치가 될 만한 어떤 것도 신성별에 없다는 것이며, 나의 발전과 성장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그 곳에 가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을 리가 없다.

107:3.8 (1180.1) 신성별에서 조절자의 본성이나 기원에 대하여 배울 것이 조금이거나 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수많은 다른 근원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지식이 유익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 누적된 자료를 조합하고, 연관하고, 그리고 상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07:3.9 (1180.2) 생각 조절자에 의해 제시된 용기와 지혜가 그들은 광범위한 범위와 깊이 있게 훈련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그들은 개인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훈련은 틀림없이

신성별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행해졌을 것이다. 독특한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이 분명히 신성별에서 조절자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직원들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앙의 그리고 감독하는 무리단이, 자신의 우주권역의 종족과 인류에게 자신의 칠중 증여를 완성하려는, 미가엘 계층의 첫 번째 파라다이스 아들의 지금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에 의해 주재된다는 것을 안다.

107:3.10 (1180.3) 우리는 실제로 비(非)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우리는 다만 개인성구현된 계층들만 접촉하고 교통한다. 이들은 신성별에서 이름이 지어졌고, 그리고 숫자로서가 아니라 항상 이름으로써 알려진다.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은 영원히 신성별에 주소가 정해진다, 그 신성한 구체는 그들의 고향인 것이다. 그들은 오직 우주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만 그곳을 나올 수 있다. 그들 중 아주 극소수만이 지역우주에서 발견되며, 그러나 대부분은 중앙우주에 있다.

제 4 장. 조절자의 본성과 현존

107:4.1 (1180.4) 생각 조절자에 대하여 신성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 기원의 본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일 뿐이다. 신성의

순수함은 신(神)의 모든 속성들의 잠재 본질, 그 단편 속에 영원하고 무한한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우주현존의 절대 본질이 함유될 수 있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확실하다,

107:4.2 (1180.5) 조절자의 실재적인 기원은 무한함이 틀림없고, 그리고 진보하는 필사자의 불멸의 혼과 융합하기 이전의, 조절자의 실체는 절대에 가까움이 틀림없다. 조절자들은 우주적 감각이나 신(神)의 감각에서는 절대적이 아니나, 단편화된 본성의 잠재에서는 아마도 진실로 절대적이다. 그들은 우주성에서는 분별화되지만 본성에서는 아니며, 바깥쪽 확장에서는 유한하지만 의미, 가치 그리고 사실의 안쪽 확장에 있어서는 그들은 절대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신성한 선물들을 아버지의 '분별되어진 절대 단편들'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107:4.3 (1180.6) 어떤 조절자도 파라다이스 아버지께 불충한 적이 없었다; 개인 창조체들의 보다 낮은 계층들은 가끔 불충한 동료들과 다투곤 하지만, 조절자들 중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으며, 그들은 우주적 기능과 창조체 사명활동의 그들의 천상의 구체에서 최극이며 오류가 없다.

비(非)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을 볼 수 있다. 단독 메신저들로서의 나의 계층은,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과 함께, 조절자들의 현존을 영적 반응 현상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세라핌천사들도 때로는 사람들의 물질적인 마음속에 있는 감시자들의 현존과 관계적-연합된 것으로 보이는 영적 광채를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의 본성이 진화 세계들로부터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융합된 개인성들과의 연합으로 감지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미 개인성구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들 중에는 아무도 조절자들의 실제적인 현존을 실재적으로 식별하지 못한다. 조절자들이 우주적으로 불가시적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높고도 배타적인 신성한 기원과 본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 신성한 현존에 동반하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 조절자들과 연관을 이루게 되는, 하나의 특징적 빛, 영 광채가 있다. 네바돈 우주에서는 이 파라다이스의 광채가 "표시등"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으며, 유버사에서는 "생명의 빛"이라고 불린다. 유란시아에서는 이 현상을

때때로 “세상으로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취는 참 빛”이라고 언급되어 왔다.

107:4.6 (1181.2) 우주 아버지께 도달한 모든 존재들은 개인성구현된 생각 조절자들을 볼 수 있다. 모든 단계들에 있는 조절자들은, 다른 모든 존재들, 실존개체들, 영들, 개인성들, 그리고 영 현시활동들과 함께, 파라다이스의 신(神)에서 기원되고, 그리고 대우주의 주요 정부들을 주재하는 저들 최극 창조자 개인성들에 의해 항상 식별될 수 있다.

107:4.7 (1181.3) 너희는 조절자가 내주 한다는 진정한 의의(意義)를 정말로 실현할 수 있는가? 너희는 내주 하면서 너희의 유한한 필사자 본성들과 융합하는, 절대적이며 무한한 신(神), 우주 아버지의 절대 단편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로 알아차리고 있는가? 필사 사람이, 전 조화우주의 실존적 원인자의 실재적인 단편과 융합될 때, 그 비슷한 예도 없었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동반자 관계의 운명에는 어떤 한계도 결코 있을 수 없다. 사람은, 영원 속에서, 목적을 지닌 신(神)의 무한성뿐만 아니라 이 동일한 하느님의

의지를 지닌 단편의 끝남이 없는 잠재성도 발견해갈 것이다. 조절자는 필사자 개인성에게 하느님의 경이로움을 항상 계시해 주며, 이 천상의 계시에는 결코 끝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조절자가 하느님의 것이며 그리고 필사 사람에게는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제 5 장. 조절자 마음작용

107:5.1 (1181.4) 진화적인 필사자들은 마음을 영과 물질의 우주적 중재라고 보기 쉽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가 식별할 수 있는 마음의 주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 조절자들도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간들이 감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조절자들은 전(前)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와 영이 구분되기 이전, 실체의 절대 차원에서의 하느님의 단편들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영이 구별되기 이전의 일원론적 차원에서는 중재되어 질 구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의 중재 기능은 있을 수가 없었다.

107:5.2 (1181.5) 조절자들은 계획하고, 일하고,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어울리는 자아신분의 힘들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들은 최초의 또는 순결의 조절자

집단보다 상위의 모든 형태들의 감시자들과 상호 교통할 수 있는 무제한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상호간의 교통의 본질과 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시 할 것이 거의 없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마음작용이 있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코 개인성구현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107:5.3 (1181.6) 조절자의 마음작용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마음작용과 같다—그것은 공동 행위자 마음의 조상이다.

107:5.4 (1181.7) 조절자에 있는 것으로 그려지는 마음의 유형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에서 비롯된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전(前)개인적인 수많은 계층의 실존개체들에게 주어진 마음자질과 비슷할 것이다. 이 계층들 중에 많은 존재들이 유란시아에는 계시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모두 마음을 가진 본질특성을 나타낸다. 기원적인 신(神)의 이 개별화된 이들은 불멸하는 존재들의 수많은 진화적 유형들과 통합되고 그리고 그러한 신(神)의 단편들과 융합하려는 발전된 능력을 가진 한정된 숫자의 비(非)진화 존재들까지도 통합되어진다는 것이 가능하다.

107:5.5 (1182.1) 생각 조절자가 생존하는 인간의 진화적이며 불멸인 모론시아 혼과 융합될 때, 조절자의 마음은 상승하는 필사자가 우주적 진보의 영 차원들에 도달할 때까지, 단지 창조체의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지속하는 것으로 정체성이 확인될 수 있다.

107:5.6 (1182.2) 상승하는 체험의 최종자 차원에 도달하게 되면, 이 일곱 번째 단계의 영들은 어떤 마음 요소들을 변형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요소들은 상승하는 개인성의 신성과 인간 위상들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던 필사자와 조절자의 마음들의 어떤 위상들의 연합을 나타낸다. 이 체험적 마음의 본질특성은 아마도 “최극위(最極位)화이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화하는 신(神)—최극존재—의 체험적 자질을 증강시킨다.

제 6 장. 순수 영으로서의 조절자

107:6.1 (1182.3) 생각 조절자들이 창조체의 체험 안에서 마주침에 따라서, 그들은 영적 영향의 현존과 인도를 드러낸다. 조절자는 참으로 영, 순수한 영이며, 영 이상의 존재이다. 우리는 신비 감시자들을 한 번도 만족스럽게 구분해본

적이 없으며, 그들에 대하여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진실로 하느님과-같음이다.

107:6.2 (1182.4) 조절자는 사람의 영원 가능성이다. 사람은 조절자의 개인성 가능성이다. 너희의 개별적 조절자들은 너희의 일시적인 정체성을 영원하게 하고자하는 희망 속에서 너희를 영으로 만들려고 일하고 있다. 조절자들은 영들의 아버지의 아름다움과, 자아-증여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다. 그들은 진실로 그리고 신성하게 너희를 사랑한다; 사람의 마음 안에 갇혀있는 영 희망이다. 그들은 너희 필사자 마음의 신성 성취를 이루기를 그리하여 그들의 고독이 끝이 나고,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물질적 처지와 시간의 껍질이라는 한계로부터 너희가 해방되어지는 것을 고대한다.

107:6.3 (1182.5) 파라다이스로 가는 너희의 길은 영 달성의 행로이며, 조절자의 본성이 우주 아버지의 영적 본성을 신실하게 계시해 줄 것이다. 파라다이스 상승을 넘어서 그리고 영원한 생애의 최종자-이후의 단계들에서 조절자는 영적 사명활동이 아닌 다른 어떤 자격으로 한때의 인간이었던 자기의 동반자를 접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파라다이스 상승 그리고 최종자 생애는 하느님을 알고 영성화 되어가는 필사자와 하느님을 계시하는 조절자의 영적 사명활동의 동반자 관계이다.

^{107:6.4 (1182.6)} 우리는 생각 조절자들이 영, 순수한 영이며, 절대 영이라는 것을 추측으로 안다. 그러나 그 조절자는 배타적인 영 실체이상인 무엇이다. 마음을 갖고 있다는 추측 이외에도 순수한 에너지의 요소들도 있다. 하느님이 순수한 에너지와 순수한 영의 기원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의 단편들이 이 둘 모두라는 것을 쉽게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절자들이 파라다이스의 동시적이며 보편적인 중력회로들을 넘어 공간을 통과하는 것은 사실이다.

^{107:6.5 (1182.7)} 신비 감시자들이 그렇게 우주와 우주들의 물질적 순환회로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정말 수수께끼이다. 그러나 그들이 물질 중력 순환회로들을 넘어 대우주 전역에 두루 순식간에 전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이 외부 공간 차원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들은 틀림없이 파라다이스의 중력 현존을 따라서 이 지역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나의 개인성 계층이

대우주의 경계선 너머까지 공동 행위자의 마음 순환회로들을 지나갈 수 있다 해도, 우리는 외부 공간의 미지의 영역에서 조절자들의 현존을 감지할 수 있음을 확신한 적이 결코 없다.

107:6.6 (1183.1) 그리고 조절자들이 물질적-중력 순환회로들을 이용하는 반면, 그들은 물질 창조처럼 그것에 종속되지 않는다. 조절자들은 중력의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하자면 중력 발현에 선조(先祖)가 되는 실존(實在)의 우주 차원에서, 단편으로 분할된 중력 선조(先祖)의 단편들이다.

107:6.7 (1183.2) 생각 조절자들은 그들이 증여된 이후로 그들의 필사자 상대들의 자연적인 죽음으로 그들이 신성별을 향하여 출발하는 날까지 이완-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연적인 죽음의 문턱을 아직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그들은 이러한 잠시 동안의 휴식도 맛보지 못한다. 생각 조절자들은 에너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들이 바로 에너지이며, 가장 높은 차원 그리고 가장 신성한 계층의 에너지이다.

제 7 장. 조절자와 개인성

107:7.1 (1183.3) 조절자들은 개인성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실존개체들이며, 그들이 필사자에 내주하는 동안 실재적으로 개인성구현되지는 못하지만 진실로 완전하게 개별존재화 되어 있다. 생각 조절자들은 진정한 개인성이 아닐지라도 그들은 참 실체이며, 우주와 우주들에게 알려진 것들 중에 가장 순수한 계층의 실체들이다-그들은 신성한 현존이다. 개인적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이 경이로운 단편들은 일반적으로 존재들로 알려져 있으며, 필사자에 대한 그들의 사명활동 영적 위상의 관점에서 때로는 영 실존개체로 언급된다.

107:7.2 (1183.4) 만약에 생각 조절자들이 선택의 힘과 의지의 특권을 갖고 있는 개인성이 아니라면, 그들이 어떻게 필사의 상대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진화적인 세상의 이 창조체에 내주 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마도 우주들의 우주의 어떤 존재도 정확한 대답을 찾은 적은 없을 것이다. 단독 메신저인 나의 개인성 계층도, 개인성이 아닌 실존개체로서의 의지, 선택 그리고 사랑의 자질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다.

107:7.3 (1183.5) 우리는 생각 조절자들이 선택에서의 모든 전(前)개인적 차원에서 의지작용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곤 하였다. 그들은 인간 존재에 내주하기를 지원하고, 그들은 사람의 영원한 생애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며, 그들은 환경에 따라서 적응, 변경 또는 대처하며, 이 활동들은 순수한 의지작용을 암시한다. 그들은 필사자들에 대하여 애정을 갖고 있으며, 우주의 위기들에 대처하고,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행동하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고도의 의지적 반응이다. 인간 의지의 권역과 관계가 없는 모든 상황들에서도, 그들은, 모든 감각에서 의지와 동등한 힘의 행사, 극대화된 결정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를 의심할 여지없이 드러내 보인다.

107:7.4 (1183.6) 만약에 생각 조절자들이 의지작용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왜 필사자의 의지에 따라가는가? 리는 그것은 조절자의 의지작용이 본성으로는 절대적이라 할지라도 현시활동에서는 전(前)개인적이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인간의 의지는 우주 실체의 개인성 차원에서 기능하며, 조화우주에 두루 미(未)개인자—비(非)개인적, 하위-

개인적, 전(前)개인적 존재—는 실존하는 개인성의 뜻과 활동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107:7.5 (1183.7) 창조된 존재들과 비(非)개인적 에너지들의 우주에 두루 우리는 개인성과 분리되어 현시되는 의지, 의지작용, 선택 그리고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 조절자들과 또한 그와 유사한 다른 실존개체에서를 제외하고는, 미(未)개인적 실체들과 관계적-연합하여 작용하는 개인성의 이들 속성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없다. 조절자를 하위-개인적으로 부르는 것은 옳지 않으며, 초개인적인 실존개체로써 암시하는 것도 적당하지 못하다. 다만 전(前)개인적 존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107:7.6 (1184.1) 이 신(神)의 단편들은 우리 계층들에게 신성한 선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조절자들이 기원적으로 신성하다는 것, 그리고 우주 아버지가 자신의 실질적으로 무한한 권역에 두루 그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개인성 안에서 자신의 현존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진 그 어떠한 그리고 모든 물질 창조체들과의 직접적이고도 무제한적 교통에 대한 우주 아버지가 마련한, 또는 무한한

영의 개인성들 안에서 자신의 간접적인 사명활동을 통한, 특별보호라는 데에 대한 유력한 증거와 실증이 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107:7.7 (1184.2) 신비 감시자를 맞이하는 주인공이 되는 데 기뻐하지 않을 창조된 존재는 없겠지만, 그러나 최종자 운명의 진화하는 의지 창조체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 계층에게도 내주되지 않는다.

107:7.8 (1184.3) [오르본톤의 단독 메신저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108 편 생각조절자의 임무와 사명활동

108:0.1 (1185.1) 조절자들이 인간 종족에게 대하여 갖는 임무는, 시간과 공간의 필사 창조체들에게 우주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은 신성한 선물의 가장 근본적인 일이다. 그들의 임무는 또한 필사자 마음을 높이고, 사람의 불멸의 혼을 신성한 높이로 그리고 파라다이스 완전성의 영적 차원들로 옮기는 것이다. 그리고 일시적 창조체인 인간 본성을 영원한 최종자의 신성한 본성으로 그렇게 변환하는 체험에서, 조절자들은 독특한 유형의 존재를 실존으로 탄생시키는데, 이 존재는 다른 어떤 우주

기법으로도 복제할 수 없는 완전한 조절자와 완전해진 창조체의 영원한 연합으로 구성된다.

108:0.2 (1185.2) 전체 우주에서, 실존하지 않는 차원들에 대해 체험한 사실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한한 하느님은 항상 충만하고 완벽하며, 악과 창조체의 체험을 제외하고 영원하게 모든 것을 포함하신다. 하느님은 잘못할 수가 없다; 하느님은 전혀 실패가 없다. 하느님은 그가 개인적으로 체험하시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체험적으로 아시지 못한다. 하느님의 선행 지식은 실존적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이 유한한 필사자들과 함께 상승하는 생애의 모든 진실한 체험에 동참하기 위하여 파라다이스로부터 내려온다; 이것은 실존적인 하느님이 진실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사람의 체험적인 아버지가 되는 오직 그러한 방법이다. 영원한 하느님의 무한성은 유한한 체험을 위한 잠재를 포함하며, 이 잠재는 인간 존재들의 삶의 변천하는 체험들을 실재적으로 공유하는 조절자 단편들의 사명활동에서 실재로 되어간다.

제 1 장. 선택과 배정

108:1.1 (1185.3) 조절자들이 신성별로부터 필사자의 봉사를 위하여 파견될 때, 그들은 실존적 신성의 자질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그들이 이전의 진화하는 창조체들과의 가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접촉한 것들에 비례하여 체험적 본질특성에서 다양하다. 우리들도 조절자의 배정의 기준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신성한 선물들은 내주하는 개인성에 적응하는 데에 영원히 합당한 어떤 지혜롭고 효율적인 정책에 따라서 증여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한다. 우리들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더 많이 체험한 조절자들은 대개의 경우 인간 마음의 보다 높은 유형 속에 내주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선천적인 자질은 선택과 임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108:1.2 (1185.4) 비록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모든 생각 조절자들이 자원자들인 것을 확실히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원하기 이전에도, 그들이 내주하기 위한 후보자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다. 조상에 대한 세라핌천사의 초안들과 삶의 행위성에서의 구체적으로 투사된 원형틀들이 신성별의 조절자 예비 무리단에게 지역 우주의 수도에서 안쪽으로 초우주들의 본부로 향하는 반영 기법에 의하여 파라다이스를 통해서

전달된다. 이러한 예측에는 필사의 후보자의 세습되어온 전력들뿐만 아니라 지적 자질과 영적 능력의 유력한 정도를 포함한다. 조절자들은 그렇게 그들이 상세한 본성들을 온전히 알고 있는 마음들에 내주하기를 자원한다.

108:1.3 (1186.1)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조절자는 인간 후보자의 세 가지 분별된-자격들에 특별히 관심이 있다:

108:1.4 (1186.2) 1. 지적 능력. 마음이 정상적인가? 지적 잠재, 지능 능력은 무엇인가 ? 개별존재가 진정한 의지 창조체로 발전할 수 있는가? 지혜가 기능해 볼 기회가 있겠는가?

108:1.5 (1186.3) 2. 영적 지각력. 존경에서 나오는 발전의 가망성, 종교적 본성의 탄생과 성장. 혼의 잠재, 가망성이 있는 영적 접수성의 수용능력은 무엇인가?

108:1.6 (1186.4) 3. 병합된 지능적 그리고 영적 힘. 인간적 성격의 힘을 산출하고 그리고 생존할 가치가 있는 어떤 불멸의 혼의 확실한 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부여된-자질들이 연관되고 병합되는 정도.

108:1.7 (1186.5) 이들 여러 사실들을 앞에 놓고 감시자들이 배정을 받으려고 자유롭게 자원하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 아마도 하나 이상의 조절자들이 지원을 하는데, 감독하는 개인성구현된 계층의 존재들이 후보가 되는 필사자를 영성화하고 영원화 시키는 임무에 가장 적합한 하나를 자원하는 여러 조절자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절자들의 배정과 봉사에 있어서 창조체의 성(性)은 고려되지 않는다.)

108:1.8 (1186.6) 조절자는 지원한 순간부터 실제로 보내지기까지의 짧은 기간을 신성별에 있는 개인성구현된 감시자들의 학교에서 보내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곳에서는 조절자를 기다리고 있는 필사 마음의 활동 원형틀이 배정된 조절자를 교육하는 데에 사용되며, 개인적인 접근과 마음을 영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마음의 모형은 초우주의 반영 봉사에 의해 공급된 자료들의 조합을 통해서 구성된다. 단독 메신저들의 긴 우주 생애를 통하여, 많은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과 접촉함으로써 확인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얻은 결과로, 우리는 적어도 이상과 같이 납득하고 믿고 있다.

108:1.9 (1186.7) 조절자들이 일단 신성별로부터 실천적으로 파견되면, 그들이 보내진 순간으로부터 선택된 주체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시간사이에는 실재적으로 시간 차이가 없다. 신성별에서 유란시아까지 조절자의 평균 통과 시간은 117시간 42분 7초이다. 실질적으로 이 시간은 모두 유버사에서의 등록에 사용된다.

제 2 장. 조절자 내주의 선행 조건

108:2.1 (1186.8) 개인성 예측들이 신성별에 전달되자마자, 봉사를 위하여 조절자들이 자원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인간 주체가 최초의 도덕적 결정을 하기 전에는 실재로 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인간 어린이의 최초 도덕적 선택은 자동적으로 일곱 번째 마음-보조에서 나타나며, 지역 우주의 창조 영을 경유하여, 이 정보를 신성별로 발송하는 초우주를 관할하는 주(主) 영의 현존 안에서, 공동 행위자의 우주 마음-중력 순환회로위에 알려진다. 조절자들은 유란시아의 인간 주체들이 평균적으로 여섯 살이 되기 바로 전에 도착한다. 현재 세대에게는 5년 10개월 4일이 걸리며, 그것은 지구상의 시간으로 태어난 지 2,134일째이다.

108:2.2 (1187.1) 조절자는 보조 마음-영들의 내주하는 봉사로서 적절히 준비되고 성령 안에서 회로연결이 될 때까지 필사자 마음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 마음이 조절자를 받아들이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일곱 보조자들의 조화-협동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창조체의 마음은 경배하는 태도를 내어뻘쳐야 하며,—도덕적 선택—선과 악의 출현하는 가치들 중에서 선택의 능력을 보임에 따른 지혜 기능을 나타내야 한다.

108:2.3 (1187.2) 이렇게 하여 인간 마음 상태는 조절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들은, 진리의 영이 이들 서로 다른 영적 사명활동들의 조화-협동자로서 기능하는 그러한 세계들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마음에 내주 하려고 즉시 나타나지는 않는다. 만일에 이 증여 아들들의 영이 제시되어 있으면, 일곱 번째 보조 마음-영이 기능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필사의 지능에 대하여 앞서서 사명활동 해왔던 연관된 여섯 보조자의 조화-협동이 잠재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신호를 우주 어머니 영에게 보내는 즉시 조절자들은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신성한 조절자들은 오순절 이후로 유란시아의

도덕적 지위의 모든 정상적인 마음들에 보편적으로
증여되었다.

108:2.4 (1187.3) 진리의 영이 자질로서 부여된 마음이라도, 도덕적
결정의 출현이 있기 전에는 조절자들이 독단적으로
필사자 지성에 침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도덕적
결정이 만들어지면, 이 영 조력자는 신성별로부터의
직접적인 관할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신성한
조절자와 그들의 인간 주체 사이에서 가능하고 있는, 그
어떠한 중재자나 또는 간섭하는 다른 권한이나 힘은 없다;
하느님과 사람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108:2.5 (1187.4) 진화하는 세계의 거주자들에게 진리의 영이
부어지기 전의 시대에는, 조절자들의 증여가 많은 영의
영향들과 개인성 태도들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증여가 어떤 법칙에 의하여 일어나는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며, 그러한 진화하는 마음들 속에
내주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원한 조절자들에 대한 허가를
무엇이 결정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주어지기 전에 그 마음들 속에 조절자들이 도착하는 것과

연관하여 나타나는 많은 영향들과 조건들을 보고 있으며,
그들은 다음과 같다:

108:2.6 (1187.5) 1. 개인적 세라핌천사 수호자들의 배정. 만일 필사자에게 아직까지 조절자가 내주한 적이 없었다면, 개인적인 수호천사가 배정됨과 동시에 조절자가 바로 온다. 조절자들의 사명활동과 개인 수호 세라핌천사의 사명활동 사이에는 아주 확실하지만 알려지지 않는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

108:2.7 (1187.6) 2. 지적 성취와 영 달성의 세 번째 순환계의 달성. 나는 그러한 일들과 관련된 지역우주 개인성들에게 그 같은 완수가 알려지기 이전에 세 번째 순환회로를 획득함에 따라서 필사자 마음 안에 조절자들이 도착하는 것을 보아왔다.

108:2.8 (1187.7) 3. 특별한 영적 의미의 최극 결정에 따라서. 개인적 행성위기에서 그러한 인간의 행동은 대기하던 조절자의 즉각적인 도착이 따른다.

108:2.9 (1187.8) 4. 형제신분의 영. 정신적 순환계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수호자들이

배정되었는지에 상관없이—위기 결정과 비슷한 것이 없는 경우에—진화하는 필사자가 동료들 사랑하는 일에서 사로잡히고 육신으로의 그의 형제들에게 사심-없는 사명활동에 몰두하게 되면, 기다리던 조절자는 그러한 필사 사명활동자의 마음에 내주하기 위하여 변함없이 내려온다.

108:2.10 (1188.1) 5.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자하는 의지의 선언. 우리는 공간 세계들의 많은 필사자들이 조절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으나, 아직 감시자가 나타나지 않은 많은 경우를 본다. 우리는 그러한 창조체들이 하루하루를 살며, 이제 곧 그들은 조용히,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다는 결단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는 생각 조절자가 즉각적으로 파견되는 것을 목격한다.

108:2.11 (1188.2) 6. 최극존재의 영향. 필사 거주자들의 진화하는 혼과 조절자가 융합하지 않는 세계들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영향에 의하여 조절자들이 증여되는 것을 본다. 우리는 그러한 증여가 최극존재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조화우주 반영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 조절자들이 진화하는 필사자 마음들의 이들 일정 유형들과는 왜 융합할 수 없으며 또 융합하지 않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한 현상들은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았다.

제 3 장. 조직과 관리-행정

108:3.1 (1188.3) 우리가 아는 한, 조절자들은 우주들의 우주 안에 독립적인 작업 단위로 조직되며, 신성별로부터 직접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일곱 개의 초우주들에 두루 한결같으며, 모든 지역우주들은 신비 감시자들의 동일한 유형들에 의해 도움을 받고 있다. 우리가 관찰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은, 수많은 연속을 이루는 조절자들이 인종들을 통하여 두루, 여러 섭리세대를 넘어서, 그리고 세계와 체계와 우주로 확장되는 그러한 연속적인 조직을 포함하면서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신성한 선물들의 행적을 계속 추적하기는, 그들이 대우주에 두루 상호교체하면서 기능하기 때문에, 극도로 어렵다.

108:3.2 (1188.4) 조절자들은 일곱 개의 초우주들에 있는 본부들에서만(신성별의 바깥쪽에서는) 완벽한 기록이

되어 있다. 각각의 상승하는 창조체에 내주하는 각 조절자의 번호와 계층은 파라다이스 당국에 의하여 초우주의 본부에 보고된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관련된 지역우주와 교통되고 관계가 있는 특정 행성에 전달된다. 그러나 지역우주의 기록들은 생각 조절자들의 모든 숫자를 밝히지 못한다; 네바돈의 기록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대리자들에 의해 임명되어 지역우주에 배정된 숫자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조절자들의 완성된 숫자의 실제 의의(意義)는 오직 신성별에만 알려져 있다.

108:3.3 (1188.5) 인간 상대자들은 종종 그들의 조절자들의 번호에 의해 알려진다; 필사자들은 조절자와 융합될 때까지 실제 우주 이름을 받지 못하며, 새롭게 된 창조체에게 새로운 이름이 운명 수호자에 의해 수여됨으로써 이 연합이 알려지기 시작한다.

108:3.4 (1188.6) 우리들이 오르본톤에 생각 조절자들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들이 그 기록에 대하여 또는 행정-관리적 관계에 대하여 전혀 권한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지역우주들의 각각의 세계들과 신성별에 있는 신성한 선물들의 중앙 거점 사이에는 매우

가까운 행정-관리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우리는 증여 파라다이스 아들의 출현이 있는 다음, 진화세계에는 개인성구현된 조절자가 행성의 조절자들의 감독자로서 배정되었음을 알고 있다.

108:3.5 (1189.1) 우주 검열자들이 행성에서의 조사를 수행할 때, 그들은, 그들이 세라핌천사의 우두머리들에게 그리고 진화하는 세계의 관리-행정에 파견된 존재들의 다른 계층들의 우두머리들에게 훈령을 전달 하면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항상 생각 조절자들의 행성 우두머리에게 자신들의 인사를 표하는 것을 주목해 보는 것은 흥미롭다. 얼마 전에, 유란시아는 네바돈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실험의 행성들의 다스리는 감독자인 타바만시아에 의해 정기 검열을 받았다. 그리고 기록들이 밝히는 것을 보면, 초인간 개인성들의 여러 우두머리들에게 경고와 고발들을 전달하면서 이에 덧붙여서, 그는 조절자들의 우두머리에게도 역시 다음과 같은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우리는 조절자들의 우두머리가 있는 곳이 정확하게 행성인지, 구원자별인지, 유버사인지 혹은 신성별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나보다 훨씬 위의 상급자인 당신들에게, 나는 체험적 행성 계열들 위에 일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의 자리에 있는 자로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비정상적인 구체에서 봉사하기를 자원해 온 이들 훌륭한 무리의 천상의 사명활동자들, 곧 신비 감시자들에게 찬미와 깊은 존중을 표하려고 나옵니다. 위기들이 얼마나 시련을 주던지 간에. 당신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바돈의 기록에서나 혹은 오르본톤의 위원회 앞에서도 신성한 조절자에 대한 고발이 제시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신뢰에 진실하였으며, 당신들은 신성하게 신실해 왔습니다. 당신들은 이 혼란스런 행성에서 수고하는 모든 존재들의 오류들을 조절하고 결점들을 보충하도록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당신들은 경이로운 존재들이며, 이 뒤쳐진 권역의 흔들 안에 있는 선(善)을 지키는 수호자들입니다. 외견상으로 자원하는 사명활동자로서 얼마동안 나의 관할 아래에 있는 동안에도, 나는 당신들에게 존중을 보냅니다. 당신들의 지극한 사심-없음과 당신들의 납득하는 사명활동, 그리고 당신들의 공명정대한 헌신들에 대한 나의 보잘 것 없는 인식 안에서도 나는 당신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당신들은

이 투쟁이 난무하며, 비탄에 잠기고, 병으로 시달리는 세계에 거주하는 필사자들에게 하느님과-같은 봉사자라는 이름이 마땅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영예를 돌립니다! 당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드립니다!”

108:3.7 (1189.3) 증거에서 제시된 여러 근거들에서, 우리는 생각 조절자들이 전적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믿으며, 신성별일 것으로 추측이 되는, 어떤 매우 멀리 있는 중심 근원으로부터, 이들 신성한 선물들의 매우 지적이며 그리고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관리-행정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그들이 신성별로부터 세상으로 온다는 것과 그들의 상대자가 죽음에 따라 그곳으로 반드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108:3.8 (1189.4) 보다 높은 영 계층들 중에서 그 관리-행정의 기능구조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들에게 부여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개인성들의 나의 계층은 널리 퍼진 우주의 상호관련자로서 연합하여 기능하는 많은 다른 개인적 그리고 미(未)개인적 하위-신(神) 집단들과 무의식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틀림없다.

우리들이 전(前)개인적 실존개체들의 여러 계층들의 현존을 균일하게 의식하는 유일한 개인성구현된 창조체 집단이기 때문에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 외에는) 우리가 그렇게 봉사한다고 추측한다.

108:3.9 (1189.5) 우리는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전(前)개인적 신(神)의 단편인, 조절자들의 현존을 안다. 우리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초개인적 표현들인,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의 현존을 감지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으로부터 생겨난 어떤 계시되지 않은 계층들의 영 현존을 반드시 감지한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에게 계시되지 않은 다른 실존개체들에게까지 전적으로 둔감하지는 않다.

108:3.10 (1190.1) 네바돈의 멜기세덱들은 단독 메신저들이 진화하는 최극존재의 확장되는 신(神) 안에 등록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영향들을 조화-협동하는 개인성라고 가르친다. 우리들이 시간 안에서 설명되지 않는 여러 현상들의 체험적 통일안에서 동참하는 자 일수도 있다는 것이 매우 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기능들을 의식적으로 확신하지는 못한다.

제 4 장. 다른 영적 영향과의 관계

108:4.1 (1190.2) 다른 신(神)의 단편들과 조화-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외한다면, 조절자들은 필사자 마음에서 그들이 행동하는 구체안에서 매우 고독하다. 신비 감시자들은, 비록 아버지가 대우주 전체에 걸친 모든 개인적 힘과 권한의 행사를 명백히 양도하셨고, 이 포기의 행동이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최극 창조자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 해도, 아버지께서는 결국에는 모든 창조체들을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영 중력과 조화-협동하여 그 자신에게 끌어당길 수 있도록 그가 행동하기 위하여 자신의 진화하는 창조체들의 마음과 혼속에 제시되어 있는 도전할 수 없는 권리를 그 자신에게 확실히 남겨놓고 있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증거 한다. 파라다이스 증여 아들이 아직 유란시아에 계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림을 받으면 내가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낼 것이다.” 파라다이스 아들과 그들의 창조적 동반자들의 이 이끌어 내는 영적 힘을 우리는 인지하며 납득하지만, 인간 마음속에서 살며 그토록 힘차게 활동하는 신비 감시자들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기능하는 지 그 방법들을 우리는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다.

108:4.2 (1190.3) 이들 신비스러운 현존들은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 안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만, 우주들의 우주의 일에 종속되거나, 조화-협동하거나. 명확하게 관련되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내주하고 있는 창조체들을 신성한 이상 쪽으로 향하도록 끊임없이 재촉하며, 그들의 미래의 그리고 더욱 나은 일생의 목적과 목표 쪽으로 위쪽으로 향하도록 항상 유혹한다. 이 신비한 감시자들은 미가엘이 네바돈의 우주에 두루 영적 통치권의 확립을 끊임없이 도우면서, 오르본톤에 있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주권의 안정화에 신비롭게 기여한다. 조절자들은 하느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최극 창조자 자녀들도 그러한 같은 뜻을 개인적으로 체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절자들의 활동과 우주 통치자들의 주권이 상호간에 의존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하다. 비록 외견상 연결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조절자들에서의 아버지 현존과 네바돈의 미가엘에서의 아버지 주권은 같은 신성의 다양한 현시활동들임에는 틀림없다.

108:4.3 (1190.4) 생각 조절자들은 다른 어떤 영적 현존들과 매우 독립적으로 오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다른 모든 영적 영향들의 이행을 통제하며 지배하는 것들로부터 아주 동떨어진 우주 법칙과 일치되게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외견상의 독립에 상관없이, 오랜 동안의 관찰 결과가 명백하게 나타내는 바에 의하면 그들이 인간 마음에서 다른 영 사명활동들과의 완전한 동조와 조화-협동으로 기능하는데, 여기에는 보조 마음-영들, 성령, 진리의 영, 그리고 다른 영향들이 포함된다.

108:4.4 (1190.5) 한 세계가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고립될 때, 한 행성이 외부로부터 순환되는 통신의 통로가 차단될 때, 칼리가스티아 반란 이후의 유란시아처럼, 개인성 메신저들 외에는 오직 하나의 직접적인 행성간 또는 우주 통신만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구체의 조절자들의 연락을 통해서 이다. 우주에서 또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조절자들이 직접 관련된 적은 없었다. 행성의 고립이 조절자들과 그들이 지역우주, 초우주 또는 중앙우주의 어느 부분과 통신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운명예비 무리단들의 자아-행동하는 조절자들과 최극자와의 접촉들이 고립된

세계 속에서도 그토록 자주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한 기법을 행성 고립의 장애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근래에 들어서 천사장들의 회로가 유란시아에서 기능하였다, 그러나 그 통신의 수단은 천사장 무리단 자체의 활동행위에 대부분 제한되어 있다.

108:4.5 (1191.1) 우리는 충분히 납득하지는 못하지만 웬만한 우주 내의 많은 영적 현상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관하여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정통하지 못하다; 그리고 나는, 이 불가사의한 일들의 대부분이 중력 메신저들과 특별한 유형의 신비 감시자들에 의해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다. 나는 조절자들이 오로지 필사자 마음을 다시-만드는 일에만 헌신한다고 믿지 않는다. 나는 개인성구현된 감시자들과 계시되지 않은 전(前)개인적 영들의 다른 계층들이 우주 아버지의 영역 창조체들과의 설명되지 않은 직접적인 접촉을 대표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제 5 장. 조절자의 사명임무

108:5.1 (1191.2) 조절자들은 유란시아에 살고 있는 그러한 복합적인 존재에 내주하기를 자원하면서 그들은 힘든

배치를 받아들인다. 그리고는 그들은 너희 마음에서 존재한다는 과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서 영역의 영적 지능에서 오는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이 영적 메시지들을 물질적 마음에게 다시 받게 하거나 또는 전환해주는 일을 떠맡고 있다; 그들은 파라다이스로 상승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108:5.2 (1191.3) 생각 조절자가 너희의 현재 삶 속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것, 그가 지금도 그가 충분한 정도의 협력에서 창조체의 무능이나, 실패로 인하여 인간 주체의 체험 속에 등록하는 데 실패된 그러한 항목들을 순환계에서 순환계로 옮겨가고 있는 것처럼, 그가 그와 맺어진 사람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그 진리들은, 그가 실존의 다음 단계에서 사용하기 위해 신실히 보전할 것이다.

108:5.3 (1191.4) 너희가 의지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조절자들이 돌보는 일에서 생기는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며, 우리는 이들 영 조력자들이 불이행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아들들의 지역우주 유형들을 포함하여, 천사들과 다른 높은 유형의 영 존재들이 악을 포용하고, 때로는

신성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조절자들은 결코 비틀거리지 않는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이것은 모든 일곱 개의 집단에게도 똑같이 사실이다.

108:5.4 (1191.5) 너희에게 있는 조절자는 너희를 새로운 다음 실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잠재적인 존재이며, 하느님과 영원한 자녀관계를 이루도록 미리 증여한 존재이다. 너희 의지의 동의와 함께 그리고 그 동의에 의해, 조절자는 물질적 마음의 창조체 성향을 창발하는 모론시아 혼의 목적과 동기의 변환되는 행동으로 종속시키는 힘을 가진다.

108:5.5 (1191.6) 신비 감시자들은 생각 조력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생각 조절자이다. 그들은 조절과 영성화로서, 새로운 세계를 위한 새로운 마음 그리고 너희 미래 생애의 새 이름을 이루기 위하여 물질적 마음과 함께 노력한다. 그들의 임무는 주로 미래의 삶에 대한 것이지, 지금의 삶이 아니다. 그들은 땅에서의 조력자가 아니라, 천상의 조력자로 불린다. 그들은 필사의 생애를 편안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너희의 삶을 합당한 정도로 어렵고 괴롭게 하여 결심들이 자극되고 증가되는 것에

관심을 둔다. 위대한 생각 조절자의 현존은 편안한 삶을 제공하거나 격렬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신성한 선물은 심오한 마음의 평화와 뛰어난 영의 평온을 제공한다.

108:5.6 (1192.1) 일시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너희의 기쁨과 슬픔의 감정들은 주로 내부의 심리적인 상황과 외부의 물질 환경에 대한 순수한 인간적이며 물질적인 반응이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위로와 필사의 안위를 위하여 조절자를 믿으려 하지 마라. 조절자가 하는 일은 너희의 영원한 모험을 준비하고 너희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다. 너희의 험클어진 감정을 가라앉히고 또는 너희의 상한 자부심을 위해 사명활동하는 것이 신비 감시자의 임무가 아니다; 조절자가 시간을 쏟고 관심이 끌려있는 것은 상승의 생애를 위하여 너희 혼을 준비하는 것이다.

108:5.7 (1192.2) 조절자들이 너희 마음과 혼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신성한 감시자와 인간 마음의 조화우주 결합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것은 계획이나 목적에서가 아니라

성취의 실재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신비한 어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사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천상의 선물들에 대하여 적당한 이름을 찾는 것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이다.

108:5.8 (1192.3) 생각 조절자들은 너희 두려움의 느낌들을 사랑과 자신감에서의 확신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들은 그러한 일을 기계장치처럼 또는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너희의 임무이다. 두려움의 뿔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해 내는 그 결정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너희는 정말로 정신적 지레받침을 제공하고 그 위에서 뒤이어 조절자가 들어 올리는 영적 지렛대와 앞으로 나아가는 밝은 빛을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108:5.9 (1192.4) 정말로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에(단지 너희가 옳다고 부르거나 그르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인종들 간의 비교적 높은 성향과 낮은 성향 사이에 있는 갈등들이 날카롭게 잘 파악될 때, 조절자가 그러한 체험들 속에 어떤 결정적이고 활동적인 방법으로 항상 참여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조절자의 그러한 활동이 상대되는

인간에게 무의식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최소한 그 가치와 실체성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108:5.10 (1192.5) 만일 네가 개인적인 운명의 수호자를 가지고 생존에 실패한다면, 그 수호천사는 그의 책임을 신실히 이행했다는 해명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판결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러나 생각 조절자들은 그들의 상대자가 살아남지 못하여도 심사를 받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로는, 사명활동의 완전성에 천사들은 미진할 수 있는 반면에, 생각 조절자들은 파라다이스 완전성의 방법으로 활동한다; 그들의 사명활동은 신성별 밖의 어떤 존재에 의한 비평의 가능성도 넘어서는 완벽한 기법으로 특징지어진다. 너희는 완전한 인도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에 대한 목표는 분명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제 6 장.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

108:6.1 (1192.6) 고귀하며 완전한 조절자들이 유란시아의 필사자들과 같은, 물질적 창조체들의 마음속에 실재적 실존으로서 자신을 제공하고, 실제로 땅에 있는 동물기원의 존재들과 보호관찰의 연합을 더할 나위 없이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신성한 겸양의 경이로움이 아닐 수 없다.

108:6.2 (1193.1) 세상의 거주자들의 이전 상태에 관계없이, 신성한 아들의 증여에 이어서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진리의 영이 수여된 이후에, 조절자들이 모든 정상적인 의지 창조체들의 마음속에 내주하기 위하여 무리를 지어 세상에 왔다. 파라다이스 증여 아들의 임무가 완수됨에 따라서, 이 감시자들은 참으로 “너희 안에 있는 하늘의 왕국”을 이루었다. 신성한 선물들의 증여를 통하여 아버지는 죄와 악에 가능한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 것이다, 왜냐하면 조절자는 인간적인 불의의 바로 그 와중에서도 필사자의 마음에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이 글자 그대로 진실이기 때문이다. 내주하는 조절자들은 특히 순전한 탐욕과 이기심에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다; 그들은 아름답고 신성한 것에 대한 불경함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동물적인 두려움과 어린아이 같은 갈망 때문에 그들의 활동에서 실질적으로 훼방을 받는다.

108:6.3 (1193.2) 신비 감시자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우주 아버지의 증여이자, 우주에 널리 펼쳐진 하느님 형상의 반영이다.

위대한 선생은 한때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들 마음의 영 안에서 새로워져야만 한다고 가르쳤다; 그들이 진리의 완성 안에서 그리고 정의로움 안에서 창조되어, 하느님과 같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쳤다. 조절자는 신성의 표식이며 하느님의 현존이다. “하느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닮았다거나 물질적 창조체 자질의 에워싸여진 한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초라한 창조체들 위에 생각 조절자의 천상의 증여로서 우주 아버지가 내린 영 현존의 선물을 가리킨다.

108:6.4 (1193.3) 조절자는 너희 안에서 신성한 성격의 희망과 영적 달성을 이루는 샘이다. 그는, 너희를 단순한 동물적 창조체로부터 충분히 그리고 언제까지나 구별시켜 주는 힘이며, 특권이며. 그리고 생존의 가능성이다. 그는 외적인 그리고 육체적 충동에 견주어, 더욱 높고 그리고 생각의 참된 내적인 영적 충동이며, 그것은 물질적인 육신의 신경계통을 넘어서 마음에 도달한다.

108:6.5 (1193.4) 이들 미래 생애의 신실한 보호관리자들은 반드시 모든 정신적 창조를 영적 상대자와 함께 똑같은 것을 만들어둔다; 그렇게 그들은 너희가 실제로 생존의 세계

속에서 부활되기 위하여(오직 영적으로) 너희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재창조한다. 그리고 이 모든 절묘한 영
재(再)-창조계는 너희의 진화하는 그리고 불멸인 혼으로
창발하는 실체, 너희의 모론시아 자아 속에 보전되어 있다.
이 실체들은 비록 조절자가 의식의 빛으로 그들이
내보여지도록 이들 복제된 창조체들을 충분하게 드높이는
것이 거의 드물다고 해도, 실재로 그곳에 있다.

108:6.6 (1193.5) 그리고 너희가 인간 부모인 것처럼, 조절자도
실제 너희, 너희의 더욱 높은 그리고 전진하는 자아, 너희의
더욱 좋은 모론시아 그리고 미래의 영적 자아의 신성한
부모이다. 그들이 너희의 생존을 결정하고 너희를 새로운
세계와 하느님, 조절자-,너희의 신실하신 동반자와 영원한
관계로서 끝이 없는 실존으로 올려 보낼 때 심판자들과
검열관들이 식별하는 것은 이 진화하는 모론시아 혼이다.

108:6.7 (1193.6) 조절자들은 너희 진화하는 불멸의 혼들에게
영원한 조상이 되며, 신성한 기원이 되는데,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적이고 현재적인 실존을 영적이며
미래적인 생애에 비추어서 극복하도록 끊임없이 시도하게
인도한다. 감시자들은 죽지 않는 희망 속에 사로잡힌 자들,

영속하는 발전의 원천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상대자들과 다소간의 직접적인 통로를 통하여 교통하는 것을 얼마나 즐기는지! 상징들이나 다른 간접적인 방법들을 통하여 나누어 줄 때 그리고 그들의 계시들을 인간 상대자의 지능 속에 떠오르게 할 때 얼마나 기쁨을 향유하는지!

108:6.8 (1194.1) 너희 인간들은 거의 무한한 파노라마, 결코-끝남이 없는 한계가 없는 확장, 가슴 설레는 봉사를 위해 언제까지나-확장되는 기회의 구체들, 비할 데 없는 모험, 장엄한 불확실, 광대한 달성의 끝없는 전개를 시작하였다. 구름들이 머리위로 몰려들 때, 너희의 신앙은 내주하는 조절자가 현존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리하여 그렇게 필사자 불확실성의 안개너머에서 사타니아의 맨션 세계들의 신호하는 고지위에 영원한 정의로움의 태양이 밝게 빛나는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108:6.9 (1194.2) [오르본톤의 단독 메신저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109 편 조절자와 우주 창조체의 관계

109:0.1 (1195.1) 생각 조절자들은 우주 생애의 아이들이며, 순결의 조절자들은 필사의 창조체가 자라고 발전하는 동안

반드시 체험을 얻어야만 한다. 어린아이의 개인성이 진화하는 실존으로서의 갈등에 따라 확대되어 가는 것처럼, 조절자도 상승하는 삶의 다음 단계를 위한 연습들 안에서 심오하게 되어간다. 아이가 어렸을 때의 놀이와 사회생활을 통하여 성숙한 활동에 여러 가지로 적응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주하는 조절자도 모론시아 생애에 반드시 있어야 할 예비적인 필사자의 계획과 연습에 힘입어서 조화우주 삶의 다음 단계를 위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인간의 실존은, 미래의 삶에서 더 많은 책임들과 더 엄청난 기회들을 조절자에 의해 가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이용되는, 실천에서의 하나의 기간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조절자의 수고들은 너희의 안에 내주하는 동안에 행성에서의 실존과 일시적 삶의 관련사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관여되지는 않는다. 생각 조절자들은 그 전에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인간 존재의 진화하는 마음속에서 우주적 삶의 실체들을 연습하여 익히고 있다.

제 1 장. 조절자의 발전

109:1.1 (1195.2) 순결의 조절자들이 신성별로부터 보내지기 전에, 훈련교육과 발전에 대한 복잡하고도 정교한 계획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들이 필사자 관계적-연합의 새 임무에 착수하기 전에, 내주하는 체험의 조절자들을 다시 훈련시키는 확장된 체계가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는 실재적으로 알지 못한다.

109:1.2 (1195.3) 나는 감시자-내주 필사자가 생존되지 못할 때마다, 그 조절자가 신성별로 돌아갈 때, 확대된 교육 과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에게서 들어 왔다. 이 부가적인 교육은 인간 존재에 내주하였던 체험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된 것이며, 이것은 진화하는 시간 세계에 다시 보내어지기 전에 항상 주어진다.

109:1.3 (1195.4) 우주 안에서 실재적인 삶의 체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새로 형성된 생각 조절자의 신성의 완전함이 어떤 방식으로든 신비 감시자에게 체험되어진 사명활동에서의 능력을 자질로서 부여하지 않는다. 체험은 살아 있는 실존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체험은 어떤 신성한 자질도 실재적인 삶에 의해 확보하고 있는 필요성으로부터 너희를 면제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절자들은 최극자의 현 구체안에서

살며 활동하는 모든 존재들과 공통으로, 체험을 획득해야만 한다; 그들은 체험이 되지 않은 낮은 상태에서부터 더욱 많이 체험된 높은 차원의 집단으로 진화해야 한다.

109:1.4 (1196.1) 조절자들은 필사자 마음에서 한정된 발전적 생애를 체험하며, 영원히 자신의 것이 될 달성의 실체를 성취한다. 그들은 물질적인 종족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특정한 필사자 주체가 생존을 받든지 못 받든지에 상관없이, 점차적으로 조절자로서의 기술과 능력을 습득해 나간다. 또한 그들은 생존의 수용력을 지닌 불멸 혼의 진화를 양육하고 있는 것에서 인간 마음의 동등한 동반자이다.

109:1.5 (1196.2) 조절자 진화의 첫 번째 단계는 필사 존재의 생존된 혼과 융합을 이루는 일이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하느님께로, 안쪽으로 그리고 위로 자연적인 진화를 하는 동안, 조절자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바깥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자연적인 진화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성(神性)과 인간성의 이 연합의

최종적 산물은 영원히 사람의 아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제 2 장. 자아-행동하는 조절자들

109:2.1 (1196.3) 너희에게 조절자들을 체험에 관련하여—순결의, 진보의, 그리고 최극이라고—구분해 주었었다 . 그리고 너희는 또 하나의 특별한 기능적 구분을 알아야 하는데, 바로 자아-행동하는 조절자들이다. 자아-행동하는 조절자들이란 다음과 같다:

109:2.2 (1196.4) 1. 인간이 생존에서 실패했던 실재적 융합 행성에서, 또는 조절자가 필사자 주체에게 단지 빌려줄 뿐인 그런 세계에서의 일시적인 거주자로서 의지창조체의 진화하는 삶 속에서 일정한 필요 체험을 가졌던 존재이다. 그러한 감시자는 진보 또는 최극 조절자이다.

109:2.3 (1196.5) 2. 세 번째 정신 순환계를 이루었고 또한 개인적인 세라핌천사 수호자가 배정되었던 인간 안에서 영적 힘의 균형을 취득한 존재이다.

109:2.4 (1196.6) 3. 최극 결정을 내리고, 조절자와 함께 엄숙하며 진지하게 혼약에 들어간 주체를 가졌다. 조절자는 실재적

융합의 시기를 사전에 미리 바라보고 있으며, 연합을 사실의 사건으로 간주한다.

109:2.5 (1196.7) 4. 필사자의 상승이 이루어지는 진화의 세계에서 운명예비무리단 중 하나로 소집된 대상자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109:2.6 (1196.8) 5. 어떤 때에는 인간이 자고 있는 동안에, 배정된 세계의 영적 관리-행정과 연관된 연락, 접촉, 재등록, 또는 어떤 가외-인간적 봉사의 업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사자의 마음속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되기도 하는 존재이다.

109:2.7 (1196.9) 6. 행성의 영적 경영에 필수적인 어떤 조화우주 성취에 대한 역할이 맡겨진 영 개인성의 물질적 보완자였던 어떤 인간 존재에서의 체험 안에서 위기의 때에 봉사해 왔다.

109:2.8 (1196.10) 자아-행동하는 조절자들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내주하는 인간 개인성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현저한 정도의 의지를 갖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의지는 함께하는 필사자 주체 안과 그리고 밖에서 이루어진 많은 업적들에

의해서 표시된다. 그러한 조절자들은 영역의 많은 활동들 속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그들 자신이 선택한 속세의 장막에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내주하는 존재로서 더 많이 기능한다.

109:2.9 (1196.11) 이와 같은 보다 높고 더 많이 체험된 유형의 조절자들은 다른 영역에 있는 그들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자아-행동하는 조절자들이 그렇게 상호 교통하는 동안, 비록 위기의 기간 동안 행성들 간의 문제들 속에서 그들이 작용하는 경우들로 알려졌을지라도, 그들은 오직 그들의 상호 작업의 차원에서만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영역에서의 조절자로서의 사명활동에 필수적인 보관용 자료를 보전할 목적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109:2.10 (1197.1) 최극이며 자아-행동하는 조절자들은 인간의 몸체를 뜻대로 떠날 수 있다. 내주하는 존재들은 필사 생명의 유기체적인 부분이나 생물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신성한 초(超)부담(負擔)들이다. 그들은 본래의 생명 계획에서 조건적으로 주어졌으며, 물질적 실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들이 내주한 후에는 그들의 필사자 장막을 임시적으로라도 거의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109:2.11 (1197.2) 초(超)활동의 조절자들은 위임된 그들의 임무들을 달성하고, 그리고 오직 물질-생명 매체의 분해나 혹은 불멸 혼의 전환을 기다리는 존재들이다.

제 3 장. 필사자 유형과 조절자의 관계

109:3.1 (1197.3) 신비 감시자들의 구체적인 작업의 성격은 그들의 임무의 본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들이 연락 또는 융합의 조절자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어떤 조절자들은 다만 그들의 주체들에게 일시적인 삶 동안만 대여되며, 다른 조절자들은 그들의 주체가 만일 생존되면, 영속하는 융합을 허락받은 개인성 후보로서 증여된다. 또한 그들의 활동에는 체계와 우주의 차이에 따라서 그리고 행성 유형의 차이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의 활동은 놀랄 만큼 일치하며, 무엇보다도 거룩한 존재들의 창조된 계층들에게 공통되는 의무이다.

109:3.2 (1197.4) 어떤 원시 상태의 세계들에서는 (제1 계열 집단) 체험적 훈련으로써 창조체의 마음속에 내주하며, 주로 자아-육성과 진보적 개발을 위해서이다. 순결의 조절자들은, 대개 원시인들이 결정의 골짜기에 도달하고 있는 초기 시절의 그러한 세계에 보내진다, 그러나 그때는 비교적 극소수만이 고등 차원의 창발하는 영성을 달성하는, 자아-정복과 성격 획득의 언덕들을 넘어서는 도덕적 높이로 상승할 것을 선택한다. (어찌되었든, 조절자와의 융합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은 영-융합 상승존재로 살아남는다.) 그 조절자들은 가치가 있는 훈련을 받아들이고 원시적인 마음과의 과도기적 관계적-연합 속에서 경이로운 체험을 획득하며, 그들은 이 체험을 뒤이어지는 다른 세계들의 우월한 존재들에게 은혜로 활용한다. 생존할 가치가 있는 그 어떤 것도 넓은 우주 안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109:3.3 (1197.5) 또 다른 유형의 세계에서는 (제2 계열 집단) 조절자들이 필사 존재들에게 단순히 대여된다. 여기에서 감시자들이 그러한 내주(內住)를 통해서는 개인성과 융합을 달성할 수 없지만, 필사자의 일생 동안에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들의 인간 주체들에게 도움을 잘 제공하고 있다. 조절자들은 여기에서 필사 창조체들에게 단회적인 짧은 생의 기간 동안 그들의 보다 높은 영적 달성을 위한 양식(樣式)으로, 생존된 성격을 완전하게 하는 흥미로운 임무에 임시적 조력자로 대여된다. 그 조절자들은 자연사(自然死) 이후에도 돌아가지 않으며, 이들 생존하는 필사자들은 영과의 융합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얻는다.

109:3.4 (1197.6) 유란시아와 같은 세계에서는 (제3 계열 집단) 신성한 선물들과의 실제 혼약, 삶과 죽음의 약혼이 있다. 만일 너희가 생존을 얻으면, 영원한 연합, 사람과 조절자가 하나로 되는 영속하는 융합이 있게 될 것이다.

109:3.5 (1197.7) 삼분(三分)된-뇌를 가진 계열의 세계에 있는 필사자 안에서는, 조절자들이 분리되지 않은 뇌 또는 이분(二分)된-뇌의 유형보다 훨씬 더 많은 실재적 접촉을 그들의 대상자들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분리되지 않은 뇌의 유형이나 이분된 뇌의 유형—유란시아의 인종들—과 마찬가지로, 삼분(三分)된-뇌의 유형도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109:3.6 (1198.1) 이분된-뇌의 세계에서는 파라다이스로부터 증여된 아들이 이 땅에 머문 이후에, 생존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순결의 조절자들이 배정되는 일은 거의 없다. 우리가 믿기로는, 그러한 세계들에서 생존의 능력을 가진 지적인 남자와 여자들 속에 내주하는 모든 조절자들은 실천적으로 진보된 또는 최극적인 유형에 속한다.

109:3.7 (1198.2) 유란시아의 초기 진화적 인종들 대부분 가운데에는 세 가지의 존재 집단들이 있었다. 그들 중에는 조절자 수용능력이 전적으로 결핍되어 거의 동물에 가까운 자들이 있었다. 조절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확실하여 도덕적 책임감이 달성되는 나이가 되면 즉시 조절자를 받았던 자들도 있었다. 경계선에 있던 세 번째 등급이 있었는데, 이들은 조절자 받아들임을 위한 능력은 갖추었으나 감시자가 개별존재의 개인적 청원이 있어야만 마음속에 내주할 수 있었다.

109:3.8 (1198.3) 그러나 많은 순결의 조절자들은, 부적당하고 열등한 조상들에서의 대리자를 거치면서 박탈된 유전적 권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존에 대한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존재들의 경우에서, 진화하는 마음과의 접촉으로 가치 있는 예비 체험을 봉사해 왔고, 그럼으로써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세계의 보다 높은 유형의 마음에 배정되기 위하여, 더욱 잘 분별화되어 진다..

제 4 장. 조절자와 인간의 개인성

109:4.1 (1198.4) 인간 존재들 사이의 지능적인 상호 교통의 보다 높은 형태들은 내주하는 조절자에 의해 엄청나게 도움을받는다. 동물들도 동료 감정을 갖고 있으나,그들은 서로 개념을 교통하지는 않는다, 감정을 표현할 뿐, 관념이나 이상을 표현하지는 못한다. 동물에서 기원된 사람도 생각 조절자가 증여되기 전까지는 높은 유형의 지적 교류나 영적 교제를 체험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진화 창조체들이 언어를 개발할 때는, 그들은 조절자를 받는 순탄한 길에 나서는 것이다.

109:4.2 (1198.5) 동물들은 미숙한 방법으로 서로 교통하지만, 그러한 원시적인 접촉에는 개인성이 전혀 또는 거의 없다. 조절자들은 개인성이 아니며, 전(前)개인적 존재이다. 그러나 그들은 개인성의 근원으로부터 쏟아져 나왔으며,그들의 현존은 인간 개인성의 질적인

현시활동을 증강하는 것이다, 특히 만약 조절자들이 이전의 체험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더욱 확실하다.

109:4.3 (1198.6) 조절자의 유형은 인간 개인성의 표현을 위한 잠재와 함께 많은 상관이 있다. 오랜 세월을 통하여, 유란시아의 위대한 지적, 영적 영도자들은 주로 그들에게 내주하였던 조절자들의 우월성과 그리고 이전의 체험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었다.

109:4.4 (1198.7) 내주하는 조절자들은 고대의 원시인들의 후손들을 인간화시키고 변환시키는 데에서, 다른 어떤 영적 영향들과 많은 협력을 하였다. 만약에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내주하던 조절자가 모두 떠나가게 되면, 그 세계는 서서히 다시 원시 시대의 모습과 실천 관행으로 되돌아 갈 것이다. 신성한 감시자들은 진보하는 문명의 실제적 잠재들의 하나이다.

109:4.5 (1198.8) 나는 유란시아의 어느 마음속에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를 관찰하고 있는데, 유버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오르본톤에서 이전에 15개의 마음속에 내주하였었다. 우리는 이 감시자가 다른 초우주에서 비슷한 체험을 하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렇게 추정한다. 그는

경이로운 조절자이며, 지금 현재의 세대 동안에 유란시아에 가장 유용하고 강력한 기세들 중의 하나이다. 다른 이들이 생존하기를 거절함으로써 잃어버리게 된 것들을, 이 인간 존재(그리고 너희 전 세계)가 지금 얻고 있다. 체험하는 조절자가 지금 갖고 있을지라도 생존 받을 본질특성이 없는 자는 이를 빼앗기게 될 것이며, 반면에 생존받을것으로예상되는자에게는나태한 포기자가 가졌던 이전-체험을 가진 조절자까지 주어질 것이다.

109:4.6 (1199.1)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도 조절자들이 진리와 아름다움,그리고 선함의 권역 안에서 행성적인 교류-융합을 어느 정도 양육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이 같은 행성에서 두 번의 내주 체험을 갖는 일은 거의 없으며, 이전에 이 세계에 있었던 조절자가 유란시아에서 다시 봉사하는 경우는 없다. 우리가 유버사의 기록보관소 안에 있는 그들의 번호들과 기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제 5 장. 조절자 내주(內住)에 대한 물질적 장애

109:5.1 (1199.2) 최극의 그리고 자아-행동하는 조절자들은 종종, 해방되었지만 통제된 창조적 상상의 경로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고 있는 인간 마음에게, 영적 중요성의 요소들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럴 때에는, 그리고 때때로 잠자고 있을 때, 조절자가 정신적 흐름을 사로잡아 흐름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는 개념의 진행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초(超)의식의 보다 높은 심오한 곳에서 깊은 영적 변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행하여진다. 그리하여 마음의 기세와 에너지가 현재 그리고 장래의 영적 차원에서 접촉되어지는, 음조의 기준 음에 더욱 충분하게 조절되어진다.

109:5.2 (1199.3) 때로는, 마음이 밝게 빛을 받도록 하는 것, 너희들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신성한 음성을 듣는 것, 그로서 네가, 네 안에 계속 내주하는 잠재적 개인성의 지혜, 진리, 선(善), 그리고 아름다움을 부분적으로 의식되기도 하는 것이 가능하다.

109:5.3 (1199.4) 그러나 너희의 불안정함과 조금하게 바뀌는 정신적 태도가 종종, 조절자들의 일을 망치고 계획이 방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들의 일은 필사 종족들의 타고난 자연본성 때문에 간섭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명활동은 너희들 자신이 만든 선입견, 고정 관념, 그리고

오래동안-지탱하고 있는 편견에 의해서도 엄청나게 저지를 받는다. 이 어려움들 때문에, 그들의 미완결된 창조들이 번번이 단지 의식 안에서만 창발되고, 그래서 개념의 혼란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적 상황을 낱낱이 살펴볼 때에는, 각각의 그리고 모든 생각과 체험에서, 그것이 무엇이 되려고 했었는지 하는 것은 전부 무시하면서, 도대체 그것이 실재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한번에 즉시 인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109:5.4 (1199.5) 일생에 있어서 큰 문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성향들을 신비 감시자의 신성한 현존으로 개시되는 영적 총동의 요구들에 맞추는 일이다. 우주 또는 초우주 생애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반면에, 유란시아에서의 너희의 현재 삶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 주인을 강제적으로 섬겨야만 한다. 그가 오직 하나의 주인에게 영적으로 충성하는 동안, 그는 계속적인 인간의 임시적 타협 기술에 반드시 숙달되어야만 하며, 바로 이것 때문에 그토록 많은 망설임과 실패가 진화적 갈등의 긴장감에 피로를 증대시키고 굴복하게 하는 이유이다.

109:5.5 (1199.6)

대뇌의 부여된-자질과 전기화학적 전반적-통제의 유전적인 유산 둘 모두 조절자의 효과적인 활동 영역을 한정시키는 반면에,어떤 유전적 장애도(정상적인 마음속에 있는) 생겨나는 영적 성취를 방해하지 못한다. 유전이 개인성 정복의 비율에 간섭할 수도 있겠지만, 상승하는 모험에서의 생겨나는 완성을 막지는 못한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조절자와 협조한다면, 조만간에, 신성한 선물이 불멸의 모론시아 혼을 진화시킬 것이며, 융합과 함께 그 이후에는, 그 새로운 창조체를 지역우주의 주권자 주(主) 아들에게 그리고 결국에는 파라다이스에서 조절자들의 아버지께 내 보일 것이다.

제 6 장. 참된 가치의 영속성

109:6.1 (1200.1)

조절자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생존할 만한 가치는 어느 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의지 창조체 안에서의 의미 있는 모든 가치는 의미-발견이나 또는 평가하는 개인성이 생존하거나 생존하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살아남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필사의 창조체가 생존하기를 거절하기도 하지만, 삶의 체험은 여전히 버려지지 않고, 영원한 조절자가 그렇게 외견상으로 실패한 삶의 가치-있는 모습들을다른 세계로

가져가서 생존의 가능성이 있는 보다 높은 유형의
필사자의 마음속에 이들 살아남은 의미와 가치들을
증여해 준다. 가치-있는 체험은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으며, 참된 의미나 실제적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109:6.2 (1200.2) 융합 후보자들과 관련하여, 만일 신비 감시자가
필사자 연관-동료에 의해 버림받으면, 만일 인간 동반자가
상승하는 생애를 따르기를 거절하면, 자연적인 죽음(또는
그 이전에)에 의해 풀려나게 될 때 조절자는 생존되지 못한
창조체의 마음속에서 발전되었던 영존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간다. 만일 어느 조절자가 연속되는 인간
주체가 살아남지 못하여서, 개인성 융합 달성에 여러 번
실패하게 되면, 그리고 이 감시자가 그 후에
개인성구현되면, 내주하는 동안 획득한 모든 체험들과
터득한 모든 필사자 마음들은 새로운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의 실재적 소유가 되는 것이며, 장래의 모든 세대에
걸쳐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자질이 되는 것이다. 이 계층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는 이전의 모든 그의 창조체
주인들의 모든 생존하는 특색들의 복합된 조립이다.

109:6.3 (1200.3) 긴 우주 체험을 가진 조절자가, 증여되는 임무를 수행중인 신성한 아들들에게 내주하기 위하여 자원할 때, 그들은 이 봉사를 통하여 개인성 달성이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종종 이 지원자들에게 개인성을 수여하며 그의 동료들 중에 지도자가 되도록 하신다. 이는 신성별에서 권한과 함께 수여된 개인성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특유한 본성들은 필사자 속에 내주하여 체험하는 여러 가지의 모자이크식의 인간성과 그리고, 종결되는 내주하는 체험의 파라다이스 증여 아들의 인간 신성의 영적 사본(寫本)을 체현한다.

109:6.4 (1200.4) 너희 지역우주에서 조절자들의 활동은 네바돈에 있는 미가엘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 그가 요셉의 아들 예수의 육신 속에서 그의 인간 삶을 살 때 그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였던 바로 그 감시자에 의해 지도를 받는다. 그의 신뢰에 신앙을 더한 것은 이 비범한 조절자이었으며, 이 용맹스러운 감시자는 현명하게 인간적 본성을 지도하여 아버지의 완전한 뜻을 찾아 가는 선택을 함에 있어서 파라다이스 아들의 필사자 마음을 안내하였다. 이 조절자는 아브라함의 때에 마키벤타

멜기세덱과 함께 이미 사명활동을 하였고, 이렇게 내주하기 전에, 증여 체험들 사이에서, 엄청난 공훈을 세우는 데 몰두 하였었다.

109:6.5 (1200.5) 이 조절자는 예수의 인간 마음 안에서—거듭하여 생기는 삶의 상황의 각각에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헌납되는 전념을 유지했던 바로 그 마음 안에서—참으로 승리하였다. 그러한 결단성 있는 전념은 인간 본성의 한계로부터 신성한 달성의 최종으로 들어가는 참된 통행증을 이루는 것이다.

109:6.6 (1200.6) 이 동일한 조절자는 지금 그의 막강한 개인성의 불가사의한 본성 안에서 요셉의 아들 예수의 세례 이전의 인간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는 인간의 체험 속에서 성취할 수 있는 영적 가치들의 완벽한 고갈에 이르기까지 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의 평범한 삶의 비참한 환경으로부터 창조되어 나타난, 모든 유란시아인들 중에 가장 위대한, 영원하고 살아 있는 가치들의 영원하고 살아 있는 등본이다.

109:6.7 (1201.1) 조절자에게 위임된 영구한 가치를 갖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생존이 보장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감시자가 장차 필사자 마음속에 내주하는 증거를 위하여 이 소유물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또 다른 어떤 경우에는 개인성구현을 이룬 후에, 살아남아 보존되는 이 실체들이 주(主)우주 고안건축가의 봉사 안에서 장차 쓰이기 위하여 보관된다.

제 7 장.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의 운명

109:7.1 (1201.2) 우리는 조절자가 아닌 아버지의 단편들이 개인성구현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할 수는 없지만, 너희는 개인성이 우주 아버지의 주권적 자유의지로 증여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아는 한, 아버지의 단편에서 조절자 유형은 개인적 존재에 대한 봉사-사명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개인적 속성을 획득해야만 개인성을 달성한다. 이들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은 신성별에 있는 집에 있으며, 그 곳에서 그들은 그들의 전(前)개인적 연관-동료들을 가르치고 지도한다.

109:7.2 (1201.3) 개인성구현된 생각 조절자들은 속박 받지 않고, 배정되지 않고, 그리고 멀리-퍼지는 우주들의 우주의

주권적 안정자이며 보상자들이다. 그들은—실존적이며
체험적인—창조자와 창조체의 체험을 병합시킨다. 그들은
시간과 영원을 공동으로 하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우주
관리-행정에 있어서 개인적인 것과 전(前)개인적인 것을
연관시킨다.

109:7.3 (1201.4)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은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의 전적으로 지혜롭고 강력한 집행자들이다.
그들은 우주 아버지의 모든 사명활동—개인적,
전(前)개인적, 그리고 초개인적—에 대한 개인적
활동대리자들이다. 그들은 궁극자 하느님의 영토인
초월적 아(亞)절대 구체의 모든 세계들에 두루 심지어는
절대자 하느님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비범한, 비상한,
그리고 예기치 않은 것의 개인적 사명활동자들이다.

109:7.4 (1201.5) 그들은, 그들 존재 안에 모든 알려진 개인성
관계들을 포용하는 우주들의 독점적인 존재들이다;
그들은 전(全)개인적이다—그들은 개인성 이전이고,
그들은 개인성이며, 그들은 개인성 이후이다. 그들은
영원한 과거, 영원한 현재, 그리고 영원한 미래 안에서처럼
그에 따라서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을 베풀고 있다.

109:7.5 (1201.6) 무한자와 절대자 계층에서의 실존적 개인성은, 아버지께서 영원한 아들에게 증여했지만, 자기 자신의 사명활동을 위하여, 실존적인 전(前)개인적 조절자위에 증여되는, 개인성구현된 조절자 유형으로의 체험적 개인성을 남겨놓기로 선택하였으며, 그럼으로써 그들은 둘 모두 궁극자, 최극-궁극자 심지어는 최극-절대자 차원에 이르는 아(亞)절대 영역에서 초월적 사명활동을 베푸는 미래의 영원한 초(超)개인성으로 운명되어져 있다.

109:7.6 (1201.7) 우주들 안에서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이 많이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다. 경우에 따라서 그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 상의를 하며, 칠중(七重)의 창조자 아들과 함께 하였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이 보론다덱 통치자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별자리의 본부가 있는 세계에 오기도 한다.

109:7.7 (1201.8) 유란시아에 있는 행성 보론다덱 관찰자—너희가 있는 세상의 비상 대리통치를 맡은 지 얼마 안 되는 지고자 보호관리자—가 거주총독 현존 앞에서 그의 권한을 나타내었을 때, 그는 그가 선택한 모든 참모진들과 함께 유란시아에 대한 그의 비상 관리-행정을 시작하였다. 그는

즉시로 모든 연관-동료들과 보좌관들에게 행성에서의 그들의 임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그는 대리통치를 맡는 순간에 그의 현존 앞에 나왔던 세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은 선택하지 않았다. 이전의 대리통치 동안에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신성한 현존을 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들이 이와 같이 나타날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지고자 대리자는 이 자원하는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에게 어떤 임무나 확실한 의무를 배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 전(全)개인적 존재들은 유란시아에서 봉사하는 천성의 존재들의 많은 계층에서 가장 활동적인 편에 속했다.

^{109:7.8 (1202.1)}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은 우주 개인성들의 수많은 계층을 위하여 넓은 범위의 봉사를 수행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들 조절자-내주된 진화하는 창조체의 사명활동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들 비범한 인간 신성들은 전체 대우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개인성들에 속하며, 누구도 감히 그들의 장차 임무가 어떨 것이라고 예견하지 않는다.

^{109:7.9 (1202.2)} [오르본톤의 단독 메신저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110 편 조절자와 개별 필사자의 관계

110:0.1 (1203.1) 불완전한 존재에게 자유를 자질부여 하는 것에는 필연적인 비극이 수반되며, 사랑하는 동행자신분 속에서 우주적으로 그리고 애정을 담고 이들 고통을 나누려는 것이 그 조상이 되는 완전한 신(神)의 자연본성이다.

110:0.2 (1203.2) 우주의 관련사들에 대하여 내가 익히 알고 있는 한, 모든 창조 중에서 생각 조절자의 사랑과 헌신이 가장 참되게 신성한 애정이라고 본다. 종족에 대한 사명활동에 있어서의 아들들의 사랑이 장엄하지만, 개별존재에 대한 조절자의 헌신은 감동을 일으키도록 숭고하고, 신성하게 아버지-다운 것이다.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창조자로서의 배타적인 특권으로써 개별 창조체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이 형식을 명백하게 예비해 두고 계신다. 그리고 진화하는 행성들에 사는 자녀들에게 그토록 황홀하게 내주하는 이들 미(未)개인적 실존개체의 경이로운 사명활동에 딱 맞게 필적할 수 있는 것은 우주들의 우주 안에 아무 것도 없다.

제 1 장. 필사자 마음에 내주함

110:1.1 (1203.3) 조절자들이 인간 존재의 물질적 뇌 속에서 산다고 생각되어서는 안된다. 그들은 그 영역에서의 물리적 창조체의 유기적 부분이 아니다. 생각 조절자는 단일 신체 기관에 국한되어 존재하기 보다는 사람의 필사 마음에 내주하는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 보다 적당할 것 같다. 그리고 조절자는 간접적으로 그리고 인지되지 않게 인간 주체와 항상 교통하고 있는 데, 특별히 초(超)의식 속에서 마음이 영과 경건한 접촉을 이루는 숭고한 체험을 하는 동안 더욱 그러하다.

110:1.2 (1203.4) 나는 사람의 영적 번영을 돌보는 과업에 그토록 헌신적으로 신실한, 사람들 안에서 함께 사는 조절자들의 사심-없고 장엄한 일이, 진화하는 필사자들에게 더욱 깊은 올바른 앎으로 달성되고 보다 나은 납득을 성취하도록 내가 돕는 것이 가능했으면 하고 바란다. 이들 감시자들은 사람 마음의 보다 높은 위상을 위한 사명활동자이다; 그들은 인간 지능의 영적 잠재를 다루는 지혜롭고도 체험을 지닌 조종자이다. 이들 하늘의 조력자들은 행복의 천국 피난처에 이르기까지 안쪽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안전하게 너희를 인도하는 엄청난 과업에 전념되어 있다. 지칠 줄 모르는 이들 일꾼은 영속하는 너희 삶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의 승리를 장차 개인화구현하는 일에
바쳐져있다. 그들은 사람의 진화하는 혼이 멀리-떨어진
영원한 해안에 있는 완전의 신성한 항구(港口)를 향하도록
노련하게 안내하면서, 하느님-의식의 인간 마음이 악의
모래톱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인도하는 경계심 많은
일꾼들이다. 조절자들은 땅에서 사는 너희의 짧은
삶에서의 어둡고 불확실한 미로를 거쳐 가는 너희의
안전하고도 확실한 안내자들이며, 사랑하는
영도자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주체들이 진보하는 완전의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계속적으로 자극하는 참을성
있는 선생들이다. 그들은 창조체 성격의 숭고한 가치들을
조심스럽게 보호하는 보호관리자들이다. 나는 너희가
그들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충만하게 그들과 협동하며,
그리고 더욱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소중하게 품을 수
있기를 바란다.

110:1.3 (1204.1) 비록 그 신성한 내주자 들이 결코-끝남이 없는
실존의 다음 단계를 위한 너희의 영적 준비에 주로
관련되어 있지만, 그들은 또한 너희의 현세적 번영과 이
땅에서의 너희의 실제적 성취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너희의 건강, 행복 그리고 참된 번영에

기여하기를 기뻐한다. 그들은 영원한 진보의 너희의 미래 삶에 해롭지 않은, 행성에서의 진보의 모든 문제에서 너희의 성공에 무관심하지 않다.

110:1.4 (1204.2) 너희의 매일 매일의 하는 일과 너희의 삶의 다양한 세부항목들에 대하여, 그것들이 너희의 중대한 현세적 선택과 치명적인 영적 결정의 결심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하여 혼의 생존과 영원한 진보에 관한 너희 문제의 해결에 요소가 되는, 바로 그 한도까지, 조절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관여하고 있다. 조절자는 순전히 현세적인 번영에 관해서는 소극적인 반면에 너희의 영원 미래의 모든 관련사와 관련해서는 신성하게 적극적이다.

110:1.5 (1204.3) 조절자는 정신을 온통 파괴하지 않는 한, 모든 질병에 두루 그리고 모든 재난들 속에서도 너희와 변함없이 함께 있다. 그러나 하느님으로부터 온 이 경이로운 선물을 위해 마련된 이 땅에서의 장막인 물질 몸체를 고의적으로 오염시키거나 또는 불결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악의적으로 가혹한 것이겠는가. 모든 물리적 독물은 물질 마음을 드높이려는 조절자의 노력을 심하게

저지하며, 한편으로 두려움,노여움, 질투심, 투기,의심, 그리고 편협함 같은 정신적 독물은 진화하는 혼의 영적 진보를 엄청나게 방해한다.

110:1.6 (1204.4) 너는 오늘 조절자의 구매자 신분의 시기를 거치며 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영원한 연합에서 너희의 마음과 혼을 찾아나서는 신성한 영이, 너희가 너희 안에 맡겨진 신뢰에 신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모론시아의 하나 됨, 천상의 조화, 조화우주 조화-협동, 신성한 조율, 천상의 융합, 결코-끝남이 없는 정체성의 혼합, 그리고 너무나 완전하고 최종적이어서 가장 체험 많은 개인성일지라도 융합 동반자—필사 사람과 신성한 조절자—를 결코 분리된 정체성으로 인지하거나 차별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의 하나 됨이 잇달아 일어날 것이다.

제 2 장. 조절자와 인간의 의지

110:2.1 (1204.5) 생각 조절자들이 인간의 마음에 내주할 때, 그들은 그들 자신과 신성별에 있는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에 의해 결정되고 미리-정해진, 그리고 유란시아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적인 삶, 모형이 되는 생애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인간 주체가 지적인 그리고 영적인 발전을 위한 명확하고 미리-결정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어떤 인간 존재도 이 계획을 받아들이도록 의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너희는 모두 숙명의 주체들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신성한 숙명을 받아들이도록 미리-정해진 것은 아니다; 너희는 생각 조절자 계획의 전부 또는 어떤 일부도 거부하는 충분한 해방에 놓여 있다. 너희가 기꺼이 그리고 지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려 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개인성 방향성구현 위에서 더욱 많은 영향력을 얻는 끝 지점까지 오게 한다면, 그러한 마음 변화에 영향을 끼치고 그러한 영적 조절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 신성한 감시자들이 너희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의 선택과 결정에 임의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조절자들은 너희의 개인성의 주권을 존중하며, 그들은 항상 너희의 의지에 굴종적이다.

110:2.2 (1204.6) 그들은 그들이 일하는 방법에서 끈질기며, 창의적이며, 그리고 완전하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 주인의 의지적 자아신분을 해치는 일은 결코 없다. 어떤 인간

존재도 신성한 감시자에 의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영성화 되는 일은 결코 없으며, 생존은 시간의 창조체가 원해야만 하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조절자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성공적인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말해서 너희의 협력하는 동의에따라 변환이 성취되었음을 기록들이 보여줄 것이다; 상승하는 삶에서의 엄청난 변환의 매 단계마다 그 달성에서 너희는 조절자와 기꺼운 동반자가 되어갈 것이다.

110:2.3 (1205.1) 조절자는 너희의 사고를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은, 오히려 그것을 영성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어떤 천사나 조절자도 직접적으로 인간의 생각에 영향을 주도록 전념되지 않는다; 그것은 너희의 배타적인 개인성 특권이다. 조절자들은 너희의 사고 과정을 증진시키고, 변형시키고, 조절하고, 그리고 조화-협동시키는 데 몰두되어 있다; 그러나 더욱 특별하고 명백하게, 그들은 생존 하는 목적을 위하여, 너희 생애의 영적 부분, 너희의 참된 전진하는 자아의 모론시아 사본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한다는 것이다.

110:2.4 (1205.2) 조절자들은 필사자 지능의 모든 개념의 모론시아 복제물을 산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인간 마음의 보다 높은 차원의 영역에서 일한다. 그러므로 인간 마음 순환계는 그 위에서 부딪쳐 영향을 끼치고, 그 안에서 중심을 이루는 두 개의 실체가 있다; 하나는, 생명운반자들의 기원적 계획으로부터 진화되는 필사의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신성별의 높은 구체들로부터 온 불멸의 실존개체, 하느님으로부터 온 내주하는 선물이다. 그러나 필사의 자아는 게다가 개인적 자아이다; 그것은 개인성을 가지고 있다.

110:2.5 (1205.3) 너희는 개인적 창조체로서 마음과 의지를 갖고 있다. 조절자는 전(前)개인적 창조체로서 전(前)마음과 전(前)의지를 갖고 있다. 만일에 너희가 눈에서 눈으로 볼 정도로, 그렇게 조절자의 마음에 충분히 순응한다면, 그러면 너희의 마음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너희는 조절자 마음의 보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뒤이어서, 만일 너희의 의지가 이 새로운 즉, 병합된 마음의 결정을 집행하도록 명령하고 힘을 가한다면, 조절자의 전(前)개인적 의지는 너희의 결정을 통하여 개인성 표현에 달성할 것이며, 그리고 그 특정한 투사, 프로젝트에 관한 한, 너희와

조절자는 하나이다. 너희의 마음은 신성(神性) 조율에
달성한 것이며, 조절자의 의지는 개인성 표현을 성취한
것이다.

110:2.6 (1205.4) 이 정체성이 실현되는 범위까지, 너희는 실존의
모론시아 계층에 정신적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모론시아 마음은, 다양하게 물질적이고 영적인
자연본성들의, 협동하는 마음 전체의 본질이자 총합을
의미하는 하나의 용어이다. 그러므로 모론시아 지능은
지역우주 안에서 하나의 의지에 의하여 지배되는
이원(二元) 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필사자의
경우에, 기원에서의 인간적인 것, 인간 마음의 사람이
하느님의 마음작용으로 정체화구현을 거치면서 신성하게
되어 가는, 하나의 의지이다.

제 3 장. 조절자와의 협조

110:3.1 (1205.5) 조절자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신성하고 장엄한
경기를 하고 있다; 그들은 공간 속에서 시간의 최극 모험들
중 하나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영원에서의 더 큰 과업들을 추진하면서 그에 따라,
시간에서의 너희의 짧은 투쟁에서 너희의 협동이

그들에게 협조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때, 그들은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보통은, 너희의 조절자가 너희와 교통하려고 시도할 때, 그 메시지는 인간 마음의 에너지 줄기의 물질적 흐름 속에서 잃어버리게 되며, 겨우 어찌다가 너희는 메아리, 신성한 음성의, 가냘프고 아득한 메아리만을 붙잡을 뿐이다.

110:3.2 (1205.6) 필사자 삶을 통하여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의 생존을 가져오는 활동사업에서, 너희의 조절자가 승리하는 것은, 너희 믿음에 대한 이론에 달려있기 보다는 너희의 결정, 결심 그리고 확고부동한 신앙에 달려있다. 이들 모든 개인성 성장의 움직임은, 조절자와 협동하도록 너희를 돕기 때문에, 너희의 전진을 돕는 힘찬 영향이 되어간다. 그들은 너희가 저항하는 것을 그치도록 도와준다. 조절자들은 필사자들이 완전성 달성의 상승하는 통로를 따라서 전진하도록 만든 계획을 협조하는 일에, 필사자들이 성공하는지 또는 실패하는지에 따라서, 현세에 떠맡은 일에서 외견상으로 성공하든지 또는 실패한다. 생존의 비밀은 하느님과-같음이 되고자 하는 최극의 인간 욕망 속에, 그리고 그 압도하는 욕망을 최종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그

어떤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고 그리고 되는데 연관되어 있는 기꺼이 나섬에 감추어져 있다.

110:3.3 (1206.1) 조절자의 성공 또는 실패를 언급할 때 우리는 인간의 생존이라는 말로써 이야기하게 된다. 조절자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들은 신성한 본질요소이며, 그들은 그들이 떠맡은 각각의 일 속에서 항상 승리를 창발한다.

110:3.4 (1206.2) 너희 중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간과 생각을 삶의 사소한 일들에 소모하면서, 반면에 영속하는 의미의 더욱 본질적인 실체, 너희와 너희의 조절자들 사이에 더욱 조화되는 활동 동의를 개발하는 데에 관련된 바로 그 성취들을, 너희가 거의 전적으로 간과하고 있음을 나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인간 실존의 가장 큰 목표는 내주하는 조절자의 신성에 조율하는 것이다; 필사자 삶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너희 마음 안에서 기다리고 일하는 신성한 영의 영원한 표적들에 대한 참된 그리고 납득하는 헌납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운명을 실현하기 위한 헌신적이고 단호한 노력은 명량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 그리고 성공적이며 명예를 받을 만한 이 땅에서의 삶과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생각 조절자와 협력하는 것은 자아-고문, 짐짓 흉내 내는 경건함, 또는 위선적이고 허세부리는 자아-비하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상적인 삶은 두려움에 찬 염려에서의 실존이 아니라 사랑으로 봉사하는 생활이다.

110:3.5 (1206.3) 혼동, 당황함, 때로는 심지어 낙심되고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것조차, 반드시 내주하는 조절자의 인도에 대한 저항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태도들이 때로는 신성한 감시자와의 활발한 협동이 부족하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진보가 다소간 늦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지능적 감정적 어려움들은 하느님을-알고 있는 혼의 확실한 생존을 한 치라도 방해하지 못한다. 무지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생존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으며, 혼란된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불안도 마찬가지다. 오직 조절자의 인도에 대한 의식적인 저항하는 것만이 진화하는 불멸 혼의 생존을 막을 수 있다.

110:3.6 (1206.4) 너희는 너희의 조절자와의 협동이 특별한 의식적(意識的) 과정이라고 여겨서는 안된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의 동기 그리고 너의 결정, 너의 신실한 결심과 그리고 너의 최극의 욕망들은 실제적이며 효과적인 협동을 이루고 있다. 너희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조절자와의 조화를 의식적으로 증강시켜 나갈 수가 있다;

110:3.7 (1206.5) 1. 신성한 인도에 응답하기로 선택하는 것; 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의 가장 높은 의식 위에 인간 일생의 기초를 진지하게 두며, 그런 다음 이들 신성의 본질특성들을 지혜, 경배, 신앙 그리고 사랑을 통하여 조화-협동시키는 것.

110:3.8 (1206.6) 2.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신성한 아버지신분에 대한 진정한 인지와 천국의 부모에 대한 사랑하는 경배.

110:3.9 (1206.7) 3. 사람을 사랑하고 진지하게 그에게 봉사하기를 바라는 것-너의 동료 필사자 각자에 대하여 지적이며 현명한 애정으로 연결된 사람의 형제신분을 전심으로 인지하는 것.

110:3.10 (1206.8) 4. 조화우주 시민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최극존재에 대한 너희의 진보적 책무들을 정직하게

인지하는 것, 진화적 사람과 진화하고 있는 신(神)의 상호 의존성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조화우주 도덕의 탄생이며 우주적 의무에 대한 실현의 시작이다.

제 4 장. 마음 안에서의 조절자의 일

110:4.1 (1207.1) 조절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주요 순환회로들을 타고 들어오는 조화우주 지능의 계속적인 흐름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들은 우주들의 에너지와 영적 지능에 충분히 접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막강한 내주자들은 본성에서의 공통성이 부족하고 반응적 인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필사자 주체의 마음에게 이 지혜와 진리의 보화를 그렇게 많이 전해줄 수 없다.

110:4.2 (1207.2) 생각 조절자는 너희의 모론시아 혼이 진화하기까지 그렇게 너희 마음을 영성화하려고 계속적인 노력에 몰두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 자신은 이러한 내적 사명활동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너희에게는 너희 자신의 물질적 지능에서 나온 산물과, 너희 혼과 조절자의 공동 활동에서 나온 산물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110:4.3 (1207.3) 생각, 결론, 그리고 마음에서의 다른 그림들의
느닷없는 일부 특정한 현시들은 때때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조절자가 일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흔하게 그것들은, 진화하는 동물적 마음 회로의
선천적인, 정상적이고 보통의 심리적 기능에서
자연적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발생하는 것들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정신적 차원 안에서 함께 집단을 이루어
왔던 것들이, 관념의 의식 속으로 갑자기 창발하는 것이다.
(이들 잠재의식적 표출과는 대조적으로, 조절자의
계시들은 초(超)의식의 영역을 통하여 나타난다.)

110:4.4 (1207.4) 의식의 비활성 차원 저편 너머의 모든 마음의
문제들을 조절자의 보호관리에 믿고 맡겨라. 때가 되면, 이
세계에서가 아니라면 맨션세계에서, 그들은 그들
청지기관계의 좋은 평가서술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결국에는 그들이 그들의 보호와 보관에 위탁되었던 저들
가치와 의미를 내놓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생존한다면
필사 마음에서의 모든 가치 있는 보화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110:4.5 (1207.5)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는 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유란시아의 종족들은 너무나 많이 전기적 그리고 화학적으로 통제되고, 너무 심하게 그들의 보통 습성이 동물적이고, 평상시의 반응에서 너무나 감정적이기 때문에, 감시자가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너희에게는 용기 있는 결정과 거룩하게 제공하는 협동이 너무 모자라서 너희에게 내주하는 조절자들은 인간 마음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발견하고 있다. 진화하는 필사자의 혼에게 새로운 진리의 섬광을 번쩍 비춰줄 가능성을 발견한 때조차도, 이 영적 계시는 종종 창조체들의 눈을 멀게 하여 광신적인 격동(激動)에 빠지게 하거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다른 지적 격변을 일으킨다. 많은 새로운 종교들과 이상한 “주의(主義)”들이 생각 조절자들과의 발육 중단된, 불완전한, 잘못 납득된, 그리고 왜곡된 교통에서 생겨났다.

110:4.6 (1207.6)

예루셈의 기록들이 보여주듯이, 수천 년 동안, 자아-행동하는 조절자들과 안전하게 기능할 수 있는 존재들이 각 세대마다 점점 더 줄어들었다. 이것은 경고를 주는 광경이며, 그리고 사타니아를 감시하는 개인성들은,

유란시아 종족들에게 보다 높은 영적 유형을 육성하고 보존하도록 고안된 수단을 개시해 달라고 주창한 너희의 더욱 직계 행성 감시자의 일부 제안에 호의를 보였다.

제 5 장. 조절자의 인도에 대한 그릇된 개념들

110:5.1 (1207.7) 조절자의 임무와 작용을 흔히 양심이라고 불리는 것과 혼동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말라. 그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양심은 인간적인 것이며 순전히 심리적인 반응이다. 양심이 경시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참으로 조절자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느님의 음성이 되어질 것이지만, 양심은 혼에게 주는 하느님의 음성이 아니다. 양심은, 마땅히, 너희가 옳은 것을 행하도록 충고하지만, 그러나 조절자는 그 위에 덧붙여서 무엇이 진실로 옳은 지를 너희에게 말해주려고 애쓴다; 그것은 너희가 감시자의 인도를 감지할 수 있게 될 때 그리고 그에 따를 수 있을 때의 그것이다.

110:5.2 (1208.1) 사람의 꿈 체험, 조화-협동되지-않은 잠자는 마음의 무질서하고 연결되지 않는 퍼레이드는 조절자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조화시키고 연관하려는 것에서 실패하였음을 제시하는 적절한 증거가

된다. 조절자들은 간단하게, 한 번의 삶에서,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으로서 그렇게 전혀 다르고 다양한 두개의 사고의 유형을 독단적으로 조화-협동시키고 동조시킬 수 없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는, 그들이 가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한 혼들은 죽음의 체험을 지나서 통과할 필요 없이 맨션세계로 직접 옮겨지게 된다.

110:5.3 (1208.2) 잠을 자는 시기동안, 조절자는 내주된 개인성의 의지가, 충분하게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서 선택과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미 충분하게 승인해 왔던 것이고, 그리고 초(超)마음의 영역, 인간과 신성한 상호관계가 연락하는 권역에 머물기 시작하게 된, 바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시도한다.

110:5.4 (1208.3) 그들의 필사자 주인이 잠들어 있는 동안, 조절자들은 자신들의 창조들을 물질적 마음의 보다 높은 차원 안에 등록하려고 시도하며, 그리고 너희의 괴상한 꿈들 중에 어떤 것들은 그들이 효과적인 접촉을 만드는 것에서 실패했음을 가리킨다. 꿈속 일생에서 겪는 불합리한 것들은 표현되지 못한 감정의 압력을 증거할 뿐 아니라, 조절자들에 의해 제시된 영적 개념들의 표현을

끔찍하게 왜곡하였음을 증거하여 보여주고 있다. 너희 자신의 열정, 충동, 그리고 타고난 다른 성향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그림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무의식적인 잠 동안에 내주자들이 심적 기록 안에 넣어두려고 애쓰고 있는 신성한 메시지 대신에, 자신들의 표현되지 못한 욕망으로 갈아치우고 있다.

110:5.5 (1208.4) 꿈 일생의 내용을 조절자가 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다. 조절자들이 잠자는 동안에 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너희의 일상적인 꿈 체험들은 순전히 생리적이며 심리적인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필사자 양심에서의 명령의 다소간 연속되고 그리고 의식되어 받은 것에서 조절자들이 등록한 개념을 구별해 내려고 시도하는 것도 위험하다. 이것들은 개별적 분간과 개인적 결정을 통하여 해결 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그러나 인간은, 필사자 마음에서의 반응을 신성한 존엄성의 영역으로 높여주는 큰 실책을 범하기보다는, 그것이 순전히 인간적 체험일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조절자의 표현을 거절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생각 조절자의 영향이, 비록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해도, 대부분이 초(超)의식적 체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110:5.6 (1208.5) 너희가 정신 순환계들을 올라가면서 점점 더 그리고 다양한 정도에서, 어떤 때에는 직접적으로, 그러나 대개의 경우 간접적으로, 너희의 조절자들과 교통한다. 그러나 인간 마음속에 새롭게 생겨나는 모든 개념들이 조절자의 가르침에서 온다는 관념을 품는 것은 위험하다. 너희 계층의 존재들에서는, 너희가 조절자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실체 안에서, 너희 자신의 지능으로부터 방출된 것일 경우가 더욱 많다. 이것은 위험한 근거이며, 그리고 모든 인간 존재들은 그 자신을 위한 이들 문제를 자신의 자연스러운 인간적 지혜와 초인간적 통찰력에 따라서 해결해야만 한다.

110:5.7 (1208.6) 지금 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인간 존재에게 있는 조절자는 무척 넓은 범위의 활동을 즐기고 있는 데, 이는 주로 조절자의 내적 현존의 모든 외향적 현시활동에 대한, 이 인간의 거의 완벽한 무관심 때문이다; 그가 전체 과정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여전히 매우 초연하다는 것은 정말로 다행한 일이다. 그는 그의 시대와 세대에서 고도로 체험된

조절자중의 하나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다재다능한 조절자가 그의 마음속에서 현존하는 것과 연관된 현상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반응하며 그에 대하여 소극적인데, 운명 수호자에 의해 뜻밖의 보기 드문 다행한 반응이라고 단언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영향력에서의 유리한 조화-협동을 이루며, 행동의 상급 구체안에서 조절자에게, 또한 건강, 능률, 그리고 평온함의 입장에서 인간 동반자에게, 둘 모두에게 유익하다.

제 6 장. 일곱 정신 순환계

110:6.1 (1209.1) 물질세계에서의 개인성 실현의 전체의 총합은 필사자 잠재성의 일곱 정신 순환계들에 대한 연속적인 정복 속에 담겨있다. 일곱 번째 순환계에 들어가는 것은 참된 인간 개인성 기능의 시작을 표시한다. 첫 번째 순환계의 완료는 필사 존재의 상대적인 성숙을 나타낸다. 비록 조화우주 성장의 일곱 순환계들을 모두 통과하였다 해도 조절자와의 융합과 동등하지는 않으며,이 순환계들의 정복은 조절자와 융합하기 위한 예비 단계를 달성하였음을 표시할 뿐이다.

110:6.2 (1209.2) 조절자는 일곱 순환계들을 달성—비교적인 필사자 성숙의 성취—에서 너희와 동등한 동반자이다. 조절자는 너희와 함께 일곱 번째로부터 첫 번째로 순환계들을 올라가지만, 그러나 최극위의 지위나 그리고 자아-행동은 필사자 마음의 적극적인 협동과는 전혀 독립적으로 진보한다.

110:6.3 (1209.3) 정신 순환계들은 배타적으로 지능적인 것은 아니며, 전적으로 모론시아적인 것도 아니다. 그들은 개인성 지위, 마음 달성, 혼 성숙, 그리고 조절자 조율과 함께 해야 한다. 이들 차원의 성공적인 횡단은 단순히 그에 대한 어느 한 위상이 아니라, 전체 개인성에서의 조화로운 기능 활동을 요구한다. 부분들의 성장은 전부의 참된 성숙과 동등하지는 않다, 부분들은 실제로 물질적, 지적 그리고 영적인 전체 자아—전부인 자아—의 확대에 비례하여 성장한다.

110:6.4 (1209.4) 지적 본성의 개발이 영적 본성의 개발보다 빨리 앞지를 때, 그러한 상황은 생각 조절자와의 교통을 어렵고 또 위험하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지나친 영적 개발은 신성한 내주자의 영적 인도에 대하여 광신적이며 왜곡된

해석을 내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 영적 수용능력의 부족은, 상급 초(超)의식 안에 거주하는 영적 진리들을 그러한 물질적 지성에게 전해주는 것이 매우 어렵게 만든다. 빛과 진리의 최대의 것이 현세적 위험이나 손상의 최소의 것으로 그러한 존재의 실제 복지에 나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완전한 평형의 마음, 육체 안에 머무르는 깨끗한 습관의 마음, 신경 에너지가 안정되어진 마음, 그리고 화학 기능이 균형 잡힌 마음—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힘이 발전에서의 삼원적 조화에 있을 때의 마음—에 대하여 그러한 것이다. 그러한 균형 잡힌 성장에 의해서 사람들은 일곱 번째에서 첫 번째로, 이 땅에서의 진보의 순환계를 하나씩 하나씩 올라간다.

110:6.5 (1209.5) 조절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으며 너희에게 속해있다. 그러나 다른 존재들처럼, 그들이 직접 너희에게 이야기 할 수는 거의 없다. 너희의 지적 결정, 도덕적 선택, 그리고 영적 발전은 조절자가 너희 마음속에서 기능하도록 능력을 더해준다; 매 순환계마다 너희는, 그렇게 함으로서, 조절자 관계적-연합과 마음 조율의 하급 단계로부터 상승하고, 그렇게 조절자는 이 하느님을-찾는 마음-혼의 진화하는 의식 위에, 더욱 생생함과 확신을

증강시키면서, 운명에 대한 그의 그림화 구현을 등록하는 것이 점점 더 가능해지게 된다.

110:6.6 (1210.1) 네가 내리는 결정마다 조절자의 기능을 방해하든지 또는 촉진한다, 마찬가지로 바로 이 여러 결정은 인간 성취의 순환계들 안에서 너희의 향상을 좌우한다. 결정의 최극위, 그것의 위기와 관계가, 그것의 순환계를-만들어가는 작용과 크게 관계가 있다는 것은 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의 빈도, 빈번한 반복, 끊임없는 반복들도 또한 그러한 반응들의 습관을-형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110:6.7 (1210.2) 인간 진보의 일곱 차원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이들 차원들이 개인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각 개별존재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보기에는 각각의 인간 존재의 성장 수용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조화우주 진화의 이들 차원에서의 정복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반영된다:

110:6.8 (1210.3) 1. 조절자 조율. 영으로 변화되는 마음은 순환계 달성에 비례하여 조절자 현존과 가까워진다.

110:6.9 (1210.4) 2. 혼 진화. 모론시아 혼의 창발은 순환계 정복의 넓이와 깊이를 나타낸다.

110:6.10 (1210.5) 3. 개인성 실체. 자아신분 실체의 정도는 순환계 정복에 따라 직접적으로 결정된다. 개인은 필사자 실존의 일곱 번째 차원에서 첫 번째 차원으로 상승하면서 점점 더 실제로 되어간다.

110:6.11 (1210.6) 순환계들을 거쳐 가면서, 물질적 진화의 자녀들은 불멸 잠재성의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한다. 일곱 번째 순환계에 있는 자들의 씨눈과 같은 본성의 그림자 같은 실체는 한 지역우주 시민의 창발하는 모론시아 본성에서의 더욱 맑은 현시활동으로 길을 내어주고 있다.

110:6.12 (1210.7) 인간 성장의 일곱 차원들 또는 마음 순환계들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한편 성숙을 실현하는 이들 차원들의 최소와 최대 한계를 제시하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

110:6.13 (1210.8) 일곱 번째 순환계. 이 차원은 인간 존재가 개인적 선택, 개별적 결정, 도덕적 책임의 힘과 그리고 영적 개별존재성을 달성할 수용능력을 개발하였을 때,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지혜의 영의 지도아래에서 일곱 보조 마음-영의 연합된 기능을 나타내며, 성령의 영향 안에 필사 창조체가 휩싸이고, 그리고 유란시아에서는 필사 마음속에 생각 조절자를 받아들임과 함께 하게 되는, 진리의 영의 첫 번째 기능이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일곱 번째 순환계에 들어가는 것은 필사의 창조체가 지역우주의 진정으로 잠재 시민을 이루는 것이다.

110:6.14 (1210.9) 세 번째 순환계. 조절자의 일은 인간 상승자가 세 번째 순환계를 획득하고 개인적 세라핌천사 운명 수호자를 받아들인 후에 훨씬 더 효력 적이다. 조절자와 세라핌천사 수호자 사이에 겉으로는 아무런 노력의 협동이 없지만. 그런데도 개인 수호천사의 배정에 뒤이어서 조화우주 성취와 영적 발전의 모든 위상들에서는 놓칠 수 없는 개선이 관찰되어 진다. 세 번째 순환계가 달성되면, 조절자는 필사의 삶의 남은 기간 동안 사람의 마음을 모론시아화 하려고, 남은 순환계들을 조성하려고, 자연적인 죽음이 독특한 동반자 관계를 분해하기 전에 신성하고-인간적 관계적-연합의 마지막 단계를 성취하려고 전력을 다한다.

110:6.15 (1210.10) 첫 번째 순환계. 조절자는 너희가 진보적인 필사자 성취의 첫 번째와 최종 순환계를 달성할 때까지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이 차원은 물질적 몸체의 의복으로부터 진보하는 모론시아 혼이 자유롭게 되기 전에 인간 체험 속에서 마음-조절자 관계의 가능한 최고의 실현을 나타낸다. 마음, 감정 그리고 조화우주 통찰력에 관하여, 첫 번째 정신적 순환계의 달성은 인간 체험에서 물질 마음과 영 조절자가 가능한 가장 가까이 접근한 것이다.

110:6.16 (1211.1) 아마도 필사자 진보의 이 정신적 순환계들은 조화우주 차원—진화하는 혼과 창발하는 최극존재의 초기 관계의 모론시아 의식에 대한 진보적인 접근의 실재 의미 파악과 가치 실현—으로 표현되는 것이 나을 것이다 . 조화우주 순환계들의 의의(意義)를 물질적 마음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언제까지나 불가능한 것은 바로 이러한 관계 때문이다. 이들 순환계 달성들은 오직 하느님을-의식함과 상대적으로 관련된다. 일곱 번째나 여섯 번째 순환자들은 두 번째나 첫 번째 순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하느님을-알고 있는—자녀신분을 의식하고 있는—데에 거의 가까이 갈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낮은 순환계 존재들은 최극존재에 대한 체험적 관계, 우주 시민권을 매우 적게 의식한다. 이들 조화우주 순환계들의 달성은, 만약에 그들이 자연적인 죽음 이전에 그러한 성취에서 실패하면, 맨션세계에서 상승자의 체험의 한 부분이 되어 갈 것이다.

110:6.17 (1211.2) 신앙의 동기부여가 사람의 하느님과 의 아들신분에 대한 충분한 깨달음 실현을 체험으로 만들어주지만, 그러나 행동, 결정의 완성은 최극존재의 조화우주 실재성으로서 점진적인 친족관계의 의식을 진화적으로 달성해 가는 데에 필수 요소가 된다. 믿음은 영적 세계 속에서 잠재적인 것을 실재적인 것으로 변환시키지만, 최극자의 유한 영역 안에서는 오직 선택-체험의 실현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잠재적인 것이 실재적인 것으로 된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개인성 활동 안에서 물질적 결정에 영적 신앙을 합치게 하며, 이로써 하느님께-꿇주린 자의 인간적이며 물질적인 지렛대가 보다 효과적인 기능을 하도록 신성하며 영적인 지레 받침대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물질적 영적 기세들의 현명한 조화-

협동은 최극자의 조화우주 실현과 파라다이스 신들에 대한 모론시아의 이해 둘 모두를 엄청나게 증강시킨다.

110:6.18 (1211.3) 조화우주 순환계들의 정복은 모론시아 혼의 양적인 성장, 최극 의미들의 이해와 관계된다. 그러나 이 불멸의 혼의 질적인 지위는 필사 사람이 영원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파라다이스의-잠재적인, 사실-가치위에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파악하고 있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러므로 일곱 번째 순환자는 두 번째나 또는 심지어 첫 번째 순환자와 마찬가지로 조화우주 성장의 양적 실현을 더욱 달성하기 위하여 맨션세계로 진행해 가는 것이다.

110:6.19 (1211.4) 조화우주-순환계 달성과 실재적인 영적이고 종교적인 체험 사이에는 오직 간접적인 관계만이 있으며, 그러한 달성들은 상호적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유익하다. 순전히 영적인 발전은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번영과 거의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순환계 달성은 언제나 인간적 성공에서의 잠재와 필사자 성취를 증강시킨다.

110:6.20 (1211.5) 일곱 번째 순환계로부터 세 번째까지는 모론시아 차원의 체험에 대한 확대된 안내를 예비하는 것으로서, 물질적 삶의 기능구조에서의 실체 의존으로부터 필사자의

마음을 단념시키는 임무 안에 일곱 개의 보조 마음-영들의 활동이 증가되고 통합되는 것이 발생된다. 세 번째 순환계 이후로부터는 보조자의 영향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110:6.21 (1211.6) 일곱 개의 순환계들은 가장 높은 순전히 동물적인 차원으로부터, 개인성 체험인, 자아-의식함에서의 가장 낮은 실재 접촉적인 모론시아 차원까지 확장되는, 필사의 체험을 포용한다. 첫 번째 조화우주 순환계의 정복은 이전(以前)-모론시아 필사 성숙의 달성을 의미하며 그리고 인간의 개인성 속에서 마음 활동의 배타적인 영향으로써 보조 마음-영들의 공동 사명활동의 종결을 나타낸다. 첫 번째 순환계를 지나면, 마음은 진화에서의 모론시아 단계의 지능, 조화우주 마음의 공동 사명활동 그리고 지역우주의 창조 영의 초(超)보조 자질에 점점 더 동족이 되어간다.

110:6.22 (1212.1) 조절자들의 개별적 생애에서 중대한 날들은, 첫째로, 인간 주체가 세 번째 정신적 순환계를 돌파하고 감시자의 자아-행동과 기능에서의 증가된 범위를 (만일 내주자가 이미 자아-행동하지 않았다면) 보장하게 될 때이다; 다음은, 인간 동반자가 첫 번째 정신적 순환계를

달성하고, 그리하여 상호 교통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해진 때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융합된 때이다.

제 7 장. 불멸성의 달성

110:7.1 (1212.2) 일곱 조화우주 순환계를 성취하는 것이 조절자와의 융합과 동등한 것은 아니다. 유란시아에는 자신들의 순환계들을 달성해 온 많은 필사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융합은 여전히, 생각 조절자 안에 거주하는 것인 하느님의 뜻에, 필사자의 의지를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벽한 조율을 이루고 그 위에서, 또 다른 더욱 위대하고 더욱 숭고한 영적 성취에 달려있다.

110:7.2 (1212.3) 인간 존재가 조화우주 성취의 순환계들을 완료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필사자 의지의 최종적인 선택이, 조절자로 하여금 인간의 정체성과 진화적이고 육체적 삶을 사는 동안의 모론시아 혼과의 관계적-연합을 완료하도록 허용하면, 혼과 조절자의 그러한 완성된 연락은 독립적으로 맨션세계로 나아가며, 그곳에서 조절자와 모론시아 혼의 즉각적인 융합을 준비하는 유버사로부터의 명령이 하달된다. 육체적인 삶 동안에 이

융합이 일어나면 물질 육체는 순식간에 소멸되는데,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사람은 단지 옮겨지는 필사자가 “불 수레 속으로” 사라졌음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110:7.3 (1212.4) 유란시아로부터 그들의 주체를 옮겨 온 대부분의 조절자들은 고도로 체험된 존재이며 다른 구체에서 많은 필사자들에게 내주하였던 기록을 갖고 있다. 조절자들이 빌려주는 계층의 행성에서 값진 내주하는 체험을 획득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조절자들이 오직 생존되지 못하는 필사자 주체들 안에서의 진보적인 일에 대한 체험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110:7.4 (1212.5) 필사자와의 융합에 뒤 이어서 조절자들은 너희의 운명과 체험을 공유한다, 그들은 바로 너다. 불멸의 모론시아 혼과 연관된 조절자가 융합된 후에, 한 존재의 가치의 모든 것과 체험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른 존재의 소유가 되어, 그렇게 그 둘은 실재적으로 하나의 실존개체가 된다. 어떤 의미에서, 이 새로운 존재는 영원한 미래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과거에속한다. 모든 것, 그것은 한 때 생존되는 혼 속에서 인간이었으며 그리고

모든 것, 그것은 이제 언제까지나-상승하는 새로운 우주
개인성을 실재적으로 소유하기 시작하는 조절자 안에서,
체험적으로 신성하다. 그러나 각 우주 차원에서, 조절자는
그 차원에서 오직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저들 속성으로만
새로운 창조체에 자질로서 부여할 수 있다. 신성한
감시자와의 절대적 하나 됨, 한 조절자에게 주어진 자질의
완벽한 소모는, 우주 아버지, 영들의 아버지, 이들 신성한
선물의 언제까지나 근원을 최종적으로 달성한 후,
뒤이어지는 영원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

110:7.5 (1212.6) 진화하는 혼과 신성한 조절자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융합되면, 각자는 서로의 체험 가능한
본질특성들을 모두 얻게 된다. 이 조화-협동된 개인성이,
한때 조상이 되었던 필사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후에는
모론시아 혼속에 있었던, 생존자의 모든 체험된 기억을
소유하며, 그리고 그에 더하여 그로부터 이 잠재적
최종자는 필사자 안에 내주하였던 전 기간에 걸쳐서
조절자가 가졌던, 모든 체험적 기억을 포용하게 된다.
그러나 신성한 감시자가 과거의 영원으로부터 앞으로
가져 온 의미와 가치들을 개인성 동반자에게 언제까지나

완벽하게 자질로서 부여하는 데에는 미래의 영원이 필요할 것이다.

110:7.6 (1213.1)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유란시아인 에게 있어서 조절자는 죽음에 이르러서 해방이 이루어지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만 하며, 창발하는 혼이 너희의 물질적인 실존 계층 속에 선천적인 에너지 원형들과 화학적 기세의 거의 완벽한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되기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조절자와 접촉하는 데에서 너희가 체험하는 주요 어려움은 이러한 선천적인 매우 물질적 자연본성에서 기인한다. 것처럼 극소수의 필사자가 실제 사색가이다, 너희는 너희 마음이 신성한 조절자와 순조로운 연락을 이를 정도까지 너희 마음을 영적으로 개발하고 단련하지 않고 있다. 자비의 아버지로부터 앞으로 나아오는 사랑의 우주 방송이 보내는 다채로운 메시지들에서 조절자가 번역해주는, 영적 탄원에 대하여 인간 마음의 귀는 거의 멀어 있다. 조절자는, 너희의 물리적인 본성 속에 선천적인 화학적 전기적 기세에 의해 그토록 완벽하게 지배되는 동물적인 마음 안에, 영감을 주는 이들 영 인도들을 등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110:7.7 (1213.2) 조절자들은 필사자 마음과 접촉하는 것을 기쁨으로 향유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동물적 저항을 뚫고 들어가서 너희와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 없는, 여러 해에 걸친 침묵의 체재 기간에 두루, 참지 않으면 안된다. 봉사의 정도에서 생각 조절자가 더욱 높이 상승할수록, 그들은 더욱 효과 있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육체 안에서는, 맨션세계에서 너희가 마음과 마음으로 마주하고 너희가 그들을 알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풍부하게, 동정심 가득히, 그리고 넘치게 표현되는 애정으로 너희에게 인사할 수는 없다.

110:7.8 (1213.3) 필사자 삶 동안에는 물질적인 육체와 마음이 너희를 너희 조절자로부터 분리시키고 자유로운 교통을 방해한다, 죽음에 뒤 이어서 영원한 융합이 이루어진 후에는, 너희와 조절자는 하나이며—너희는 분리된 존재로 구별 할 수가 없다.—그리하여 그곳에서는 너희가 납득하는 것 같은, 교통에 대한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110:7.9 (1213.4) 조절자의 음성이 언제나 너희 안에 있지만, 너희 대부분은 평생 동안에 거의 그것을 듣는 일은 드물 것이다. 달성에서의 세 번째와 두 번째 순환계보다 아래에 있는

인간 존재는 최극 욕망의 순간에서, 최극의 상황 에서,
그리고 최극 결정에 따른 결과에서를
제외하고는,조절자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일은 드물다.

110:7.10 (1213.5) 운명 예비자들의 필사 마음과 행성 감독자들
사이의 접촉이 이어졌다가, 끊어졌다 하는 동안에,
내주하는 조절자는 때때로 필사의 동반자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된다. 최근에
유란시아에서, 그러한 메시지가 자아-행동하는 조절자에
의해 운명예비무리단의 회원인 인간 연관-동료에게
전해졌다. 이 메시지는 이러한 말로 소개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의 간절한 헌신을 받는 주체를 다치게 하거나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 없이, 그리고 지나치게 꾸짖거나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도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나를
위하여, 그에게 주는 나의 이 탄원을 기록하라.” 그리고
나서 아름답게 감동을 주며 하소연하는 훈계가 뒤따랐다.
무엇보다도, 조절자는 이렇게 간청하였다. “그가 더욱
충실하게 그의 진실한 협동을 나에게 보이고, 더욱
명랑하게 내가 놓아두는 과제를 견디고, 더욱 충실하게
내가 마련한 계획을 수행하고, 좀 더 참을성 있게 내가
선택한 시험을 견디고, 더욱 끈질기게 그리고 명랑하게

내가 선택한 길을 걸으며, 나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생길지도 모르는 신용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것을—내가
내주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나의 훈계를 전하여라. 나는
그에게 최극의 헌신과 신성한 영의 애정을 주고 있노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주체에게 내가 끝나는 순간까지,
땅에서의 마지막 투쟁이 끝날 바로 그 때까지 지혜와
힘으로서 내가 기능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하라. 나는 나의
개인성이 신뢰하는 것에 충실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실망시키지 말고, 나의 인내와 격렬한 투쟁에 대한
보상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발 생존을 얻으라고
내가 훈계하노라. 우리의 개인성 성취는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노라, 나는 이 인간 마음을 순환계에서 순환계로
참을성 있게 상승시켜 왔고 내 부류의 우두머리에게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언을 받았노라. 순환계에서 순환계로
나는 심판까지 나아가고 있으며, 나는 염려함이 없이,
기쁨으로 운명의 점호를 기다리고 있노라; 나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에 모든 것을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

110:7.11 (1214.1) [오르본톤의 단독 메신저에 의하여 제시되었음]

제 111 편 조절자와 혼

111:0.1 (1215.1) 인간 마음속에 신성한 조절자의 현존은, 과학이나 철학이 인간 개인성의 진화하는 혼에 대하여 만족하게 이해하는 것을 언제까지나 불가능하도록 만든다. 모론시아 혼은 우주의 자녀이며, 조화우주 통찰력과 영적 발견에 의해서만 실제로 알려질 수 있다.

111:0.2 (1215.2) 혼과 내주하는 영의 개념은 유란시아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행성의 다양한 믿음 체계들 속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내어 왔다. 동양의 많은 신앙과 서양의 어떤 신앙들은 사람은 유전성에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유전적으로 신성하다는 것을 이해해왔다. 신(神)의 외적인 전재(全在)에 더하여 내적인 현존의 느낌은 유란시아의 많은 종교들의 한 부분을 오랫동안 형성하여 왔다. 사람들은 일시적인 삶의 짧은 기간을 넘어서서 지속하도록 운명되어진 생사에 관한 어떤 것, 인간 본성 안에 자라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믿어 왔다.

111:0.3 (1215.3) 사람이 그의 진화하는 혼이 신성한 영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그것이 눈, 간, 콩팥, 심장, 그리고 나중에는 뇌와 같은 다른 물리적 기관 속에

내주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미개인은 혼을 피, 숨결, 그림자 그리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연관하였다.

111:0.4 (1215.4) 힌두교의 선생들은 대아(大我)의 개념에서 조절자의 현존과 본성의 평가에 실제적으로 접근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화하면서 잠재적인 불멸 혼의 공존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 사람은 인간 존재의 두 가지 측면, 양(陽)과 음(陰), 혼과 영을 깨달았다. 이집트인들과 많은 아프리카 종족들도 두 요소들, 카와 바를 믿었다; 대개 혼은 선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어졌으며, 영(靈)만이 선재하는 것으로 믿어졌다.

111:0.5 (1215.5) 나일 계곡의 거주자들은 은총 받은 각 개별존재는 태어날 때, 또는 그 후에 바로 그들이 카라고 부르는 보호 영이 증여된다고 믿었다. 그들은 이 수호자 영이 필사의 주체와 일생동안 함께 남아있으며 그리고 그에 앞서 미래 신분상태로 옮겨간다고 가르쳤다. 아멘호텝 3세의 탄생을 묘사하는 룩소의 신전 벽에는 어린 왕자가 나일 신(神)의 팔위에 그려져 있고, 그의 곁에는 외모로는 왕자와 동일한 다른 아이가 있으며, 이것은 이집트인들이 카라고 부르던

실존개체의 상징이다. 이 조각은 기원전 15세기에 완성된 것이다.

111:0.6 (1215.6) 카는 연관된 필사의 혼을 일시적인 삶의 보다 나은 여정으로 안내하기 바라며, 더욱 특별하게는 내세에 인간 주체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상급 영 천재로 생각되었다. 이 시대의 이집트인이 죽게 되면, 그의 카가 거대한 강의 저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처음에는 오직 왕들만이 카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곧 모든 의인들이 그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집트의 어느 지배자는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카를 언급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그것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았으며, 그것의 안내를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크게 번영하였고, 그것이 나에게 행하도록 한 것에 때문에 성공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카는 “모든 사람 속에 있는 하느님의 신탁”라고 믿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가슴의 즐거움으로 영원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믿었다.

111:0.7 (1216.1) 진화하는 유란시아 필사자의 모든 종족은 혼의 개념에 해당하는 말을 갖고 있다. 많은 원시 민족들은 혼이 인간의 눈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본다고 믿었으며, 그러므로 악한 눈의 악의를 겁을 먹으며 무서워하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사람의 영은 주님의 등불이다”라고 믿어왔다. 릭-베다는 “나의 마음이 나의 가슴에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 1 장. 선택의 마음 장(場)

111:1.1 (1216.2) 조절자들의 일이 본성에서 영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지적 기반 위에서 그들의 모든 일을 해야만 한다. 마음은 영 감시자가 내주하는 개인성의 협조로 모론시아 혼을 그것으로부터 진화시켜야만 하는 인간 토양이다.

111:1.2 (1216.3) 우주들의 우주의 여러 마음 차원들에는 조화우주 합일이 있다. 마치 성운이 우주 공간의 조화우주 에너지에서 기원되는 것처럼, 지적 자아들은 조화우주 마음에 그 기원을 가진다. 지적 자아들의 인간적 (나중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영 진화의 잠재가 우세적으로 되어 가는데, 이는 필사자 마음의 동의에 따라서, 인간 개인성의

영적 자질 그리고 함께 하는 그러한 인간 자아 속에 있는 절대 가치의 실존개체-점(點)의 창조적 현존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물질적 마음의 영 통치는 두 가지의 체험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마음은 일곱 보조 마음-영들의 사명활동을 통하여 진화되어야 하며, 그리고 물질적 (개인적) 자아는 진화적이고 잠재적인 불멸 영인 모론시아 자아의 창조와 육성에, 내주하는 조절자와의 협조를 선택해야만 한다.

111:1.3 (1216.4) 물질적인 마음은, 그 안에서 인간 개인성들이 살고, 자아-의식하고, 결정을 내리고, 하느님을 선택하거나 저버리며, 스스로를 영원하게 하거나 또는 파괴하는, 경기장이다.

111:1.4 (1216.5) 물질적인 진화는 너희에게 생명 메커니즘, 몸체를 제공해 왔다; 아버지 자신은 우주에 알려진 가장 순수한 영 실체인 생각 조절자를 너희에게 자질로서 부여해 왔다. 그러나 너희 손 안에는, 너희 자신의 결정에 종속되는, 마음이 주어져 왔다, 그리고 너희가 살고 혹은 죽는 것은 마음에 따른 것이다. 너희가 조절자와-같음을-이룸, 곧 하느님과-같음을-이룸을 성취하는 것이 가능한, 바로

그러한 도덕적 결정들을 너희가 내리는 것은, 이 마음 안에서 그리고 이 마음과 함께 하는 것이다.

111:1.5 (1216.6) 필사자 마음은 물질적인 일생 동안에 사용하도록 인간 존재에게 대여된 일시적 지성 체계이며, 그들이 이 마음을 사용함에 따라서, 그들은 영원한 실존의 잠재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거절한다. 마음은 너희 의지에 종속되는 너희가 가진 우주실체의 거의 전부이다. 그리고 혼—모론시아 자아—은 필사의 자아가 내리고 있는 현세의 결정들이 거둔 수확을 신실히 묘사할 것이다. 인간 의식은 아래로는 전기-화학 기능구조 위에 부드럽게 놓여있으며, 위로는 영-모론시아 에너지 체계에 섬세하게 닿아있다. 이 두 체계 중에 어떤 것도, 인간 존재는 그의 필사의 삶 속에서 완벽하게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가 의식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는 마음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는가 하는 것보다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기를 갈망하는가 하는 그것이 생존을 보장한다; 마음이 무엇을 닦았는가 하는 것보다 마음이 무엇을 닦으려고 분투하는가 하는 것이 영(靈) 정체화구현을 이룬다. 사람이 하느님을 의식한다는 것보다는 사람이 하느님을 동경한다는 그것이 우주에서

상승으로 귀착된다. 너희가 오늘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는
너희가 매일매일 그리고 영원 속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111:1.6 (1217.1) 마음은 조화우주 악기이며, 그 위에서 인간
의지는 파멸의 불협화음을 연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에서 바로 그 인간 의지는 하느님 정체화구현에서의
그리고 그에 따른 영원한 생존에서의 절묘한 곡조를
연주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사람에게
증여된 조절자는 악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죄를
받아들일 여지도 없지만, 그러나 필사자 마음은, 인간
의지의 악용에서 나오는 죄-가득한 음모들과 그리고 인간
의지의 자아-추구에 의하여, 실재적으로 뒤틀리고,
왜곡되고 그리고 악하고 추하게 되어버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마음은 하느님을-아는 인간 존재의 영으로
조명된 의지에 따라서 고결하고 아름다우며 진실하며
선하게—정말로 위대하게—될 수 있다.

111:1.7 (1217.2) 진화적인 마음은 그것이 조화우주 지능성의 두
극단(極端)—전적으로 기능구조화된 것과 온통 영성화된
것—위에 현시될 때만 충분히 안정되고 의존할 만하다.

순수한 기능구조적 통제와 참된 영 본성 사이에서의
지능적 극단 사이에는, 개인성 선택과 영(靈)
정체화구현에 각자의 안정과 평온함이 의존되는,
진화하고 그리고 상승하고 있는 마음의 바로 그 거대한
집단들이 그 사이에 끼여 있다.

111:1.8 (1217.3) 그러나 사람은 수동적으로, 노예처럼, 자신의
의지를 조절자에게 굴복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본성적인 필사자 마음에서의 욕구와 충동들이 그러한
어떤 인도와 의식 안에서 서로 다를 때,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협동적으로 조절자의 인도를
따르기를 선택하고 있다. 조절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지만, 그러나 결코 사람의 의지에 반하여 마음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조절자에게 사람의 의지는 최극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진화하는 인간 지능에서의 거의
무제한한 경기장에서 생각 조절과 성격 변환의 영적
목표들을 성취하려고 분투하면서, 인간 의지를 그렇게
여기며 또 존중한다.

111:1.9 (1217.4) 마음은 너희의 배이고, 조절자는 너희의
선도자이며, 인간 의지는 선장이다. 필사의 배(船)의

주인은 상승하는 혼을 영원한 생존의 모론시아 항구로 안내하는 신성한 선도자를 믿는 지혜를 가져야만 한다. 오직 이기심, 게으른 것, 그리고 악한 것에 의해서 사람의 의지는 그러한 사랑 넘치는 선도자의 안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자비를 거부한 악한 모래톱 위에, 죄를 포용한 바윗돌 위에 필사자의 생애가 난파되게 한다. 이 신실한 선도자는 너희의 동의에 따라서 시간의 장벽과 공간의 불리한 조건을 지나 신성한 마음의 바로 그 근원으로, 나아가서는 조절자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에게로 너희를 안전하게 옮겨 줄 것이다.

제 2 장. 혼의 본성

111:2.1 (1217.5) 조화우주 지능의 마음 기능에 두루, 마음의 전체성은 지적 기능의 부분들을 지배한다, 마음은 그 본질에 있어서, 기능적인 합일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잘못 인도된 자아의 현명치 못한 행동들과 선택들에 의해 방해받고 지연될 때에도 어김없이 이 구성요소의 합일을 현시한다. 그리고 마음의 이 합일은 의지 존엄성과 상승 특권의 자아와의 관계적-연합에서의 모든 차원에서, 전혀 변함없이 영 조화-협동을 추구한다.

111:2.2 (1217.6) 필사 사람의 물질적 마음은, 모론시아 천을 짜는, 그 위에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가 불후의 가치와 신성한 의미—궁극적 운명과 끝남이 없는 생애의 생존하는 혼, 잠재적 최종자—의 우주 성격의 영 원형들에 실마리를 누벼가고 있는, 조화우주 베틀이다.

111:2.3 (1218.1) 인간 개인성은, 물질적 몸으로 사는 삶에 의하여 기능적 관계 안에 함께 붙잡혀 있는, 영과 마음으로 정체성이 확인된다. 그러한 마음과 영의 이 기능관계는 마음과 영의 본질특성들 또는 속성들의 어떤 병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적으로 새롭고, 기원적이며, 그리고 잠재적으로 영원히 견디어 내는 독특한 우주 가치, 혼을 이룬다.

111:2.4 (1218.2) 그러한 불멸 혼에서의 진화적 창조 안에는 두 요소가 아니라 세 요소가 있다. 모론시아 인간 혼의 이들 세 가지 선행자는:

111:2.5 (1218.3) 1. 인간 마음과 거기에 선행하고 그 위에 부딪치는 모든 조화우주 영향들.

111:2.6 (1218.4) 2. 이 인간 마음에 내주하는 신성한 영, 그리고 그러한 절대 영성(靈性)의 단편 안에, 인간 삶 안에서 모든 연관되는 영적(靈的) 영향과 요소와 함께 하면서, 선천적으로 있는 모든 잠재들.

111:2.7 (1218.5) 3. 물질적 마음과 신성한 영 사이의 관계, 이것은 그러한 관계적-연합에 기여하는 어떤 요소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의미를 전달하고 그리고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이 독특한 관계의 실체는 물질적 또는 영적인 것도 아니다, 모론시아적인 것이다. 그것이 혼이다.

111:2.8 (1218.6) 중도(中途) 창조체들은 사람의 이 진화하는 혼을 낮은 것, 즉 물질적 마음과 높은 것, 즉 조화우주 마음과 대비하여 중간-마음이라고 오랫동안 불러왔다. 이 중간-마음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의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론시아 현상이다. 그러한 모론시아 진화의 잠재는 마음에서의 두 우주적 충동 안에서 선천적이다: 이것은 하느님을 알고 창조자의 신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창조체의 유한 마음의 충동, 그리고 사람을 알고 창조체의 체험을 획득하고자 하는 창조자의 무한 마음의 충동이다.

111:2.9 (1218.7) 불멸의 혼을 진화시키는 숭고한 활동행위는 필사자 마음이 우선 개인적이고 다음으로 초(超)동물적 실체들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도덕적 본성의 진화가 확실시되는 조화우주 사명활동의 초(超)물질적 자질을 소유하면, 그럼으로써 연관된 영적 사명활동들과 그리고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와의 진정한 창조적 접촉이 발효한다.

111:2.10 (1218.8) 그러한 인간 마음에서의 접촉적인 영성화의 필연적인 결과가 혼의 점진적인 탄생이고, 하느님을 알려고 갈망하는 인간 의지로서 지배되는 보조 마음의 공동자손이며, 모든 창조의 바로 그 하느님의 실재적 단편—신비 감시자-의 전반적-통제하에 있는 우주의 영적 기세들과 연락한 산물이다. 그리하여 자아의 물질적이고 필사인 실체가 물리적-생명 기능구조의 현세의 한계들을 초월하며, 자아신분의 연속을 위한 진화하는 매체 안에서의 새로운 표현과 새로운 정체화구현, 모론시아 그리고 불멸인 혼을 달성한다.

제 3 장. 진화하는 혼

111:3.1 (1218.9) 필사자 마음의 오류들과 인간 행위의 실수들이, 창조체 의지의 동의와 함께, 내주하는 조절자에 의해 일단 시작된 그러한 모론시아 현상을 금지할 수는 없지만, 혼의 진화를 현저하게 연기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필사자 죽음 이전에 언제든지 이 동일한 물질적인 인간 의지는 그와 같은 선택을 취소하고 생존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생존 이후에도 상승하는 필사자는 여전히 영원한 삶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 특권을 가진다; 조절자와 융합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진화하고 상승하는 창조체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조절자와의 융합은 상승하는 필사자가 영원히 그리고 거리낌이 없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111:3.2 (1219.1) 육신으로의 삶 동안, 진화하는 혼은 필사자 마음의 초물질적 결정을 강화할 수 있다. 혼은, 초물질이므로, 인간 체험의 물질 차원에서 자체의 기능을 행하지 않는다. 또한 이 하위-영(靈)인 혼은, 조절자와 같은, 신(神)의 어떤 영의 협조 없이는 모론시아 차원에서도 기능할 수 없다. 또는 혼은, 죽음이나 전환이 필사자 마음과의 물질적 관계적-연합으로부터 그것이

분리할 때까지는, 연관 기능의 모론시아 혼에게 이 물질적 마음이 자유로이 그리고 기꺼이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그렇게 하는 동안을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삶 동안, 결정-선택의 개인성 힘인 필사자의 의지는 물질적 마음 순환회로에 머무른다; 땅에서 필사의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귀중한 선택의 힘을 지닌 이 자아는 창발하는 모론시아-혼 실존개체와 점차적으로 정체성 확인을 이루어가게 된다; 죽음 후에 그리고 맨션세계에서의 부활 이후에, 인간 개인성은 모론시아 자아와 완벽하게 정체성 확인된다. 그래서 혼은 개인성 정체성의 미래의 모론시아 매체의 새싹이다.

111:3.3 (1219.2) 이 불멸의 혼은 처음에는 본성에서 전적으로 모론시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발전에 대한 능력을 소유하기 때문에, 신(神)의 영들, 대개는 창조체의 마음에 그러한 창조적 현상을 시작하였던 일으켰던 바로 그 우주 아버지의 영들과의 융합 가치의 참된 영 차원으로, 변함없이 상승한다.

111:3.4 (1219.3) 인간 마음과 신성한 조절자 둘 모두는, 진화하는 혼의 현존과 그 차별적인 본성을—조절자는 전체적으로,

마음은 부분적으로 의식한다. 혼은 그 스스로의 진화적 성장에 비례하는, 연관된 정체성으로써 마음과 조절자 둘 모두를 점점 더 의식하게 되어간다. 혼은 인간 마음과 신성한 영(靈) 둘 모두의 본질특성들을 같이 가지지만, 그러나 영(靈) 통제와 신성한 통치가 증강되는 것을 향하여, 마음 곧 그것의 의미들이 참된 영 가치와 조화-협동하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 기능의 육성을 통하여 두루, 끈질기게 진화한다.

111:3.5 (1219.4) 필사자 생애, 혼의 진화는 시험기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교육이다. 최극 가치들의 생존 안에서의 신앙이 종교의 핵심이다; 진정한 종교적 체험은, 우주적 실체의 하나의 실현으로서, 최극 가치들과 조화우주 의미들을 연합하는 데에 있다.

111:3.6 (1219.5) 마음은 양(量), 실체, 의미들을 안다. 그러나 본질—가치—은 느껴지는 것이다. 느끼는 그것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 마음과 그리고 그에 연관된, 무엇인가를 실체로-만들어내는 것, 영의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창조이다.

111:3.7 (1219.6) 사람의 진화하는 모론시아 혼이 하느님-의식의 가치-실현으로 진리(眞), 아름다움(美), 그리고 선(善)으로 충만되는 한, 그러한 결과의 존재는 파괴될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사람의 진화하는 혼 속에 영원한 가치의 생존이 없다면, 필사자 실존은 의미가 없으며, 삶 자체는 하나의 비극적인 환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까지나 진실이다: 너희가 시간 속에서 시작한 것은—그것이 만약 완결할만한 가치가 있다면, 확실하게 영원 속에서 완결할 것이다.

제 4 장. 내적인 일생

111:4.1 (1219.7) 인지(認知)는 외부세계로부터 받아들인 감각적 느낌을 개별존재의 기억 원형틀에 맞추는 지적 과정이다. 납득은 이 인지된 감각적 느낌과 그들의 연관된 기억 원형틀이 집대성되고 있다는, 즉 원칙의 역동적 계통 안으로 조직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11:4.2 (1220.1) 의미들은 인지와 납득의 병합에서 유래된다. 의미들은 전적으로 감각적 또는 물질적인 세계에는 실존하지 않는다. 의미들과 가치들은 오직 인간 체험의 내적 또는 초물질적 영역에서만 감지된다.

111:4.3 (1220.2) 참된 문명의 진보들은 모두 인류의 이 내적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참으로 창조적인 것은 오직 내적인 삶뿐이다. 문명은 어떤 세대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흥미와 에너지를 감각적 또는 외적 세계의 물질가치적인 추구에 쏟을 때에는 거의 진보하지 못한다.

111:4.4 (1220.3) 내적 그리고 외적 세계들은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갖는다. 어떤 문명도 그 젊은이들의 4분의 3이 물질가치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외적 세계의 감각적인 활동의 추구에 자신들을 몰두하게 할 때에는 위태롭게 된다. 젊은이들이 윤리학, 사회학, 철학, 순수 예술, 종교 그리고 우주론 등에 흥미를 두지 않을 때 문명은 위험에 봉착한다.

111:4.5 (1220.4) 인간 체험의 영적 영역에 부딪침에 따른. 오로지 초의식적 마음의 높은 차원에서만, 너희는 보다 낮고 보다 영구적인 문명의 건설에 기여할 효과적인 주(主) 원형틀과 관계적-연합하여, 저들 높은 개념들을 발견할 수 있다. 개인성은 선천적으로 창조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처럼 오직 개별존재의 내적 삶 속에서만 기능한다.

111:4.6 (1220.5) 눈(雪)의 결정체들은 항상 6각형의 형태를 갖지만 어떤 것도 서로 똑같지 않다. 자녀들이 유형을 따르기는 하지만 어느 두 아이도, 쌍둥이인 경우일지라도 똑같지 않다. 개인성도 유형을 따라가지만 항상 독특하다.

111:4.7 (1220.6) 행복과 즐거움은 내적인 삶에서 기인한다. 너희는 너희 혼자서는 진정한 즐거움을 체험할 수 없다. 자기 혼자 지내는 삶은 행복에 치명적이다. 가족이나 국가들조차도 그들이 그것을 남들과 나눌 때 삶을 더욱 즐길 수 있다.

111:4.8 (1220.7) 너희는 외적 세계—환경—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 너희의 지도에 가장 복종적인 것은 내적 세계의 창조성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너희의 개인성이 선재하는 원인성 법칙에서의 족쇄로부터 그렇게 크게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의지의 제한된 주권이 개인성과 연관되어 있다.

111:4.9 (1220.8) 사람의 이 내적 삶이 참으로 창조적이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는 이 창조성이 자연발생적이고 전혀 우연한 것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통제되고, 지도되고, 건설적인 것으로 되게 하든지 그에 따른 선택의 책임이 주어져 있다. 그것이 기능하는 무대 위에 선입관, 미움, 두려움, 분노,

복수심, 편협한 신앙들로 이미 가득 차 있다면 창조적인 상상력이 어떻게 훌륭한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겠는가?

111:4.10 (1220.9) 관념은 외부 세계의 자극 안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상은 오직 내적 세계의 창조적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다. 오늘날 세계의 국가들은 많은 관념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의해 지배되고 있지만, 그들은 이상에 있어서는 빈곤에-시달린 자들이다. 그것이 바로 가난, 이혼, 전쟁, 종족적 증오에 대한 설명이다.

111:4.11 (1220.10) 이것이 문제이다: 만일 자유의지 사람이 내적 사람 속에 창조성의 힘을 자질로서 부여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의지 창조성이 자유의지 파괴성의 가능성도 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창조성이 파괴성으로 바뀔 때, 너희는 죄와 악—억압, 전쟁, 그리고 파괴—의 참상과 직면한다. 악은 집대성-해체와 결국 생겨난 파괴의 방향으로 기울어진 창조성에서의 편파성이다. 모든 다툼은 그것이 내적 삶의 창조적 기능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악하다—그것은 개인성 안에서 일어나는 내란의 일종(一種)이다

111:4,12 (1221.1) 내적 창조성은 개인성 집대성활동과 자아신분 통일을 통하여 성격이 고귀하게 되도록 기여한다. 이것이 언제까지나 참이다.: 과거는 바뀔 수 없고; 오직 내적 자아의 현재 창조성의 사명활동에 의하여 미래만이 바뀔 수 있다.

제 5 장. 선택의 헌정

111:5.1 (1221.2)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내적인 삶을 하느님—내적 의미-가치가 가능한 그러한 창조체의 삶을 만든 바로 그 하느님—과 기꺼이 나누겠다는 창조체의 표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나눈다는 것은 하느님과-같음—신성한 것—이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영원한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과 나누시며, 그들은 다시, 모든 것들을 신성한 아들과 우주의 영 딸들과 차례로 나눈다.

111:5.2 (1221.3) 하느님을 본받는 것이 완전성에 이르는 열쇠이다;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은 생존의 비밀이고 생존 안에서 완전성의 비밀이다.

111:5.3 (1221.4) 필사자들은 하느님 안에서 산다,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도 필사자들 안에서 살기를 뜻하셨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에게 맡김에 따라, 그도—그리고 먼저—그 자신의 일부분을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맡기셨으며; 사람들 속에 살고, 인간의 의지에 따라 사람 속에 내주하도록 동의하였다.

111:5.4 (1221.5) 이 삶에서의 평화, 죽음에서의 생존, 다음 삶에서의 완전성, 영원에서의 봉사—이런 모든 것들은 창조체 개인성이 창조체 의지를 아버지의 의지에 종속하기로 동의—선택—할 때 지금 (영 안에서) 바로 성취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미 그 자신의 단편을 창조체 개인성의 의지에 따르도록 하는 선택을 하셨다.

111:5.5 (1221.6) 그러한 창조체의 선택은 의지의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의지의 헌정, 의지의 확대, 의지의 영화로움, 의지의 완전을 이룸이다; 그러한 선택은 창조체의 의지를 일시적 의의(意義)의 차원으로부터 창조체 아들의 개인성이 영 아버지의 개인성과 교제하는 보다 높은 상태로 올려준다.

111:5.6 (1221.7)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이것은, 비록 창조체 아들이 파라다이스에서 하느님의 사실적 현존 앞에 실재적으로 서있기 전에 한 세월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라

해도, 필사 사람이 영 아버지를 영적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이 선택은 창조체 의지의 부정에 있다기보다는—“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오히려 창조체의 적극적인 긍정에 있다. 그리고 만일 이 선택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느님을 선택한 아들은 곧 내주하는 하느님의 단편과 내적 연합(융합)을 발견하며, 한편으로는 바로 이 완전을 이루고 있는 동일한 아들은 사람의 개인성과 조물주의 개인성이 경배하는 교제, 두 개인성이 그들의 창조적 속성들을 표현을 통한 자아-의지적인 상호성—사람의 뜻과 하느님의 뜻의 또 다른 영원한 동반자관계의 탄생—안에서 영원하게 합치고 있는 경배하는 교제 안에서, 최종 개인성 만족을 발견할 것이다.

제 6 장. 인간의 역설

111:6.1 (1221.8) 필사 사람의 많은 일시적 고난들은 조화우주에 대한 그의 이중 관계에서 발아된다. 사람은 자연본능의 일부이다—그는 자연본능 안에서 존재한다—그럼에도 자연본능을 초월할 수 있다. 사람은 유한하다, 그러나 그에게 무한의 불꽃이 내주되어 있다. 그러한 이원(二元)적 상황은 악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불확실성과 적지 않은 불안을 내포하는 많은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상황을 야기한다.

111:6.2 (1222.1) 자연본능의 정복을 달성하고 자신의 자아의 초월하는데 필요한 용기는 자아-자부심의 유혹에 쓰러질 수 있는 용기이다. 자아를 초월할 수 있는 필사자는 자기 자신의 자아-의식을 신(神)화 하는 유혹에 굴복할 수도 있다. 필사자 딜레마는 그가 자연본능에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독특한 해방—영적 선택과 행동의 자유—을 소유하고 있다는 2중 사실에 있다. 사람은 물질적 차원에서는 자연본능에 예속된 자신을 발견하며, 반면에 영적 차원에서는 자연본능과 모든 일시적이며 유한적인 것들에 대하여 승리한다. 그러한 역설은 유혹, 잠재적 악, 결정에 따르는 실수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자아가 의기양양해지고 오만해 질 때, 죄는 진화할 수 있다.

111:6.3 (1222.2) 죄의 문제는 유한 세계 안에서 자아-실존적인 것이 아니다. 유한하다는 사실은 악이 아니며 또는 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유한 세계는 무한 창조자에 의해 만들어졌으며—그것은 그의 신성한 아들들의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하다. 유한한 것의 오용, 왜곡, 곡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과 죄에 기원을 일으킨다.

111:6.4 (1222.3) 영은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은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물리적 권역의 인과법칙의 수학적 차원 안에 선천적으로 있는, 변형적 잠재들에 대한 자체적인 지능 조종을 통해서만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다. 창조체 마음은 선천적으로 에너지를 통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神)의 특권이다. 그러나 창조체 마음은 물리적 우주의 에너지 비밀의 주인이 되어가는 바로 그 한도 내에서 에너지를 조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111:6.5 (1222.4) 사람이 물리적 실체를, 그것이 자기 자신이든 또는 환경이든,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물질통제와 에너지 지도의 수단과 방법을 그가 발견하는 정도까지 성공한다. 도움을 받지 않는 마음은, 그것이 불가피하게 연결된 그 자신의 물리적 기능구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물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데에서 무력하다. 그러나 몸체 기능구조의 지적 사용을 통하여, 마음은 다른 기능구조들을, 심지어는 에너지 관계와 삶의 관계들까지도 창조할 수 있는 데, 이는

이 마음이 우주 안에 있는 그 물리적 차원을 점점 크게 통제할 수 있고 심지어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활용함으로써 그렇게 창조할 수 있다.

111:6.6 (1222.5) 과학은 사실의 근원이며, 마음은 사실 없이는 작용할 수 없다. 그들은 지혜라는 건축에서 삶의 체험에 의해 서로 접합되는 벽돌이다. 사람은 사실 없이도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으며, 사랑이 없이도 하느님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가 신성한 법칙과 신성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자신의 진화하는 조화우주 철학 속에 이것들을 체험적으로 통합하기 전에는,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만물을-포함하는 본성의 무한한 평형, 숭고한 조화, 절묘한 충만함을 결코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

111:6.7 (1222.6) 물질적 지식의 확대는 관념들의 의미와 이상들의 가치에 대한, 더욱 큰 지적인 올바른 이해를 마련해준다. 인간 존재는 그의 내적 체험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진리에 대한 그의 개인적 발견을 일상생활의 냉혹한 실천적 요구들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실들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필요하다.

111:6.8 (1222.7) 필사 사람이, 그가 빠져나올 수 없도록 자연본능에 묶여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한편으로는 그가 일시적이며 유한한 모든 것들을 온통 초월하는 영적인 힘을 소유하는 것을 보면서, 불안전의 감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오직 자연스러울 뿐이다. 오직 종교적인 자신감—살아있는 신앙—만이 그러한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사람을 지탱해 줄 수 있다.

111:6.9 (1223.1) 사람의 필사자 본성을 에워싸고 그의 영적 고결한-순수성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위험들 중에서도 자부심이 가장 크다. 용기는 씩씩한 것이다. 그러나 자기중심주의는 허영이며 그리고 자멸이다. 합당한 자아-확신은 개탄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은 동물의 왕국으로부터 그를 구별해주는 유일한 것이다.

111:6.10 (1223.2) 자만은 개별존재, 단체, 종족, 국가의 어디에서 발견 되든지 사람을 속이며, 도취시키며, 죄를-낳는다. "자만은 몰락을 끌고 간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진실이다.

제 7 장. 조절자가 부딪치는 문제

111:7.1 (1223.3)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시간 안에서 그리고 마음 안에서의 불확실성, 펼쳐지는 파라다이스 상승의 사건들에서 따라오는 불확실성—은 파라다이스 모험의 본질이다; 영 안에서 그리고 영원 안에서의 안전은, 우주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신성한 연민에 대한 창조체 아들의 분별불가한 신뢰 안에서의 안전이다; 불확실성은 우주의 체험하지 못한 시민이기에 가지는 것이다; 안전은 만능이신, 모든-지혜를 지닌, 모든-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우주 맨션들 안에서 상승하고 있는 아들이기에 가지는 것이다.

111:7.2 (1223.4) 너희의 혼을 향한 조절자의 신실한 부름의 아득한 메아리에 귀 기울이라고 너희에게 충고하여도 되겠는가? 내주하는 조절자는 시간에서의 너희 생애에 걸친 투쟁을 중지시킬 수도 없고 더구나 물질적으로 바꿀 수도 없다; 조절자는 너희가 이 고역의 세계를 두루 지나며 여행하는 데에 따른 삶의 고초들을 덜어줄 수도 없다. 신성한 내주자는 너희 행성에서 살게 되면서 그에 따라 너희가 삶의 전쟁터에서 싸워가는 동안 오직 참아내면서 견딜 뿐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허용하려고만 한다면—너희가 수고하고 걱정하는 대로, 너희가 싸우고

고초를 겪는 대로—너희는 용맹스런 조절자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도록 할 수 있다. 만일 너희가 조절자에게 실제적인 동기, 최종적 목표, 그리고 너희의 제시되어 있는 물질적 세계의 평범한 문제들과의 이 모든 어렵고 벅찬 투쟁의 영원한 목적의 그림을 끊임없이 떠올리도록 단지 허용만 하면, 너희는 너무나도 위안 받고 영감 받을 수 있고, 너무나도 매료되고 흥미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111:7.3 (1223.5) 어째서 너희는, 이들 모든 격렬한 물질적 노력에서의 영적 상대자를 너희에게 보여주는 과업을 띠고 있는 조절자를 돕고 있지 않는 것인가? 어째서 너희는 너희가 창조체 실존의 일시적 어려움과 씨름하는 동안, 조절자에게 조화우주 힘의 영적 진리로서 너희를 강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인가? 어째서 너희는 지나가고 있는 시간에서의 문제들을 뒤엎힘 속에서 빨리 보면서도, 우주적 삶의 영원한 조망에서의 명백한 시각으로 너희를 복돋우려는 천상의 조력자를 격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어째서 너희는 너희가 시간의 장애물 한복판에서 수고하고 너희 필사자 삶의 여정을 에워싸고 있는 불확실성의 미로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우주 관점으로

깨우쳐지고 영감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인가? 비록 너희의 발은 땅에서 노력하는, 물질의 길을 밟지 않으면 안된다 할지라도, 어째서 조절자가 너희의 생각을 영성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111:7.4 (1223.6) 유란시아의 상급 인간 종족들은 복잡하게 섞여 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기원을 갖는 여러 종족과 혈통으로 혼합되어 있다. 이러한 혼합적인 본성은 감시자들이 일생동안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에 지나칠 정도로 그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죽음 이후에 조절자와 수호 세라핌천사 둘 모두의 문제들에도 확실히 어려움을 더한다. 얼마 전에 나는 구원자별에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한 운명 수호자가 그녀의 필사 주체에 대한 사명활동에서의 어려움에 정상참작을 바라며 제시하고 있는 공식 진술서를 들었다. 이 세라핌천사는 말했다:

111:7.5 (1223.7) "나의 어려움의 대부분은 나의 주체의 두 가지 본성들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다툼 때문이었다; 열망에서의 추진력은 동물적 게으름에 의하여 반대되고; 우월한 민족의 이상은 열등 종족의 본능으로 인하여 가로 막히고; 위대한 마음의 높은 목적들은 원시적 전승의

추진력에 의하여 적대시되고; 멀리-내다보는 감시자의 먼-
거리 관점은 시간의 창조체가 지닌 근시안으로 인하여
반대로 작용되고; 상승하는 존재의 진보적인 계획들은
물질적 본성의 욕구와 갈망으로 인하여 변경되고; 우주
지능의 섬광들은 진화하는 종족의 화학-에너지 명령으로
인하여 취소되고; 천사들의 추진력은 동물의 감정으로
인하여 저지되고; 지성의 훈련은 본능의 성향으로 인하여
물거품이 되고; 개별존재의 체험은 종족의 누적된
성향으로 인하여 저지되고; 최선의 목표들은 최악의
대세로 인하여 그늘에 가려지고; 천재의 비상(飛翔)은
평범의 중력으로 인하여 주저앉고; 착한 것의 진보는 나쁜
것의 타성으로 인하여 늦어지고; 아름다운 것의 예술은
악의 현존으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건강의 부력은 질병의
무기력으로 인하여 중화되고; 신앙의 샘은 두려움의
독으로 인하여 오염되고; 기쁨의 샘물은 슬픔의 물로
쓰디쓰게 되고; 예상의 기쁨은 실현된 것의 쓰라림으로
인하여 환멸을 느끼며; 삶의 즐거움이 죽음의 슬픔으로
인해 언제나 위협받으니. 그러한 행성에서 그러한 삶이니!
그런대도 생각 조절자의 언제까지나-현존하는 도움과

추진력 때문에, 이 혼은 행복과 성공에서의 적절한 등급을 성취하였으며, 이제 맨션계의 심판실로 상승해 왔다.”

111:7.6 (1224.1) [오르본톤의 단독 메신저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112 편 개인성 생존

112:0.1 (1225.1) 진화하는 행성들은 인간 기원의 구체이며, 상승하는 필사자 생애가 시작되는 세계이다. 유란시아는 너희의 출발점이다; 여기에서 너희와 너희의 신성한 생각 조절자가 일시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 너희에게는 완전한 안내자가 자질로서 부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시간의 경주를 진심으로 달려가고 신앙의 마지막 목표를 달성한다면, 세대의 보상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내주 하는 조절자와 영원히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실제 삶, 상승하는 삶이 시작되며, 그에 비하여 현재 너희의 필사자 상태는 단지 건물의 현관일 뿐이다. 그러면 너희 앞에 펼쳐있는 영원 속에서 최종자로서 너희의 고귀하며 진보적인 임무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연속적인 세대들에 두루 그리고 진화하는 성장의 모든 단계들에 있어서 너희의 전혀

변화되지 않은 한 부분이 있으며, 그것은-변화의 현존
속에서의 불변-개인성이다.

112:0.2 (1225.2) 개인성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 되겠지만, 개인성에 관하여 알려진 어떤 것들을
열거해 보는 것은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112:0.3 (1225.3) 1. 개인성은 우주 아버지 자신 또는 아버지로
활동하는 공동 행위자에 의해 증여된 실체의
본질특성이다.

112:0.4 (1225.4) 2. 그것은 마음이나 영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에너지 체계에 증여될 수 있다.

112:0.5 (1225.5) 3. 그것은 선재하는 원인성의 속박에 전적으로
종속되지 않는다. 그것은 상대적으로서 창조적 또는 공동-
창조적이다

112:0.6 (1225.6) 4. 진화하는 물질 창조체들에게 증여될 때, 그것은
영으로 하여금 마음의 중재를 통하여 에너지-물질의
통달을 위하여 분투하게 한다.

112:0.7 (1225.7) 5. 개인성은, 한편으로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동안에도, 모든 살아있는 에너지 체계의 정체성을 통합할 수 있다.

112:0.8 (1225.8) 6. 중력에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반응하는 세 가지 에너지들과는 정반대로 그것은 오직 개인성 순환회로에 질적인 반응만을 나타낸다.

112:0.9 (1225.9) 7. 개인성은 변화의 현존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다.

112:0.10 (1225.10) 8. 그것은 하느님께 선물-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자유 의지를 바치는 것-을 드릴 수가 있다.

112:0.11 (1225.11) 9. 그것은 도덕성—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의 상대성을 인식함—으로 특징 지워진다. 그것은 행위 차원을 식별하며 그들 사이를 선택적으로 분간한다.

112:0.12 (1225.12) 10. 개인성은 독특하고 또 절대적으로 독특하다;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독특하다; 그것은 영원과 파라다이스에서 독특하다; 증여될 때 독특하며—전혀 중복됨이 없다; 그것은 실존하는 순간마다 독특하다; 그것은 하느님과 관련하여 독특하다—하느님은 개인들을 차별대우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그들을 함께 더하시도

않는다, 그들은 더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들은
연관할 수 있을 뿐이고 합쳐질 수 없는 것이다.

112:0.13 (1226.1) 11. 개인성은 다른-개인성 현존에게 직접적으로
반응한다.

112:0.14 (1226.2) 12. 그것은 영에게 합해지는 것이 가능한 것이며,
그럼으로써 아들에 대한 관계에서 아버지의 시원성을
설명한다. (마음은 영에게 합해지는 것이 없다.)

112:0.15 (1226.3) 13. 개인성은 생존되는 혼 속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필사자 죽음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조절자와
개인성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들 사이의 관계가
(혼속에서)변화하는 것, 계속되는 진화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변화(성장)가 그치면, 혼도 그친다.

112:0.16 (1226.4) 14. 개인성은 독특하게 시간을 인식하며, 이것은
마음이나 영의 시간 인지와는 다른 어떤 것이다.

제 1 장. 개인성과 실체

112:1.1 (1226.5) 개인성은 우주 아버지에 의해, 잠재적인 영원한
자질로서 그의 창조체들에게 증여된다. 그러한 신성한
선물은 낮은 유한으로부터 가장 높은 아(亞)절대까지,

심지어는 절대의 경계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차원들 그리고 연속되는 우주적 상황들 속에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래서 개인성은 세 개의 조화우주 수준 위에서 또는 세 개의 우주 위상 안에서 작용한다:

112:1.2 (1226.6) 1. 자리 지위. 개인성은 지역우주, 초우주, 그리고 중앙우주 속에서 동일하게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112:1.3 (1226.7) 2. 의미 지위. 개인성은 유한의 차원, 아(亞)절대 차원, 그리고 심지어는 절대와 마주 부딪치는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112:1.4 (1226.8) 3. 가치 지위. 개인성은 물질적, 모론시아적, 그리고 영적인 진보(進步) 세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112:1.5 (1226.9) 개인성은 조화우주 규모상의 행위의 완전하게 된 범위를 갖는다. 유한 개인성의 차원에는 세 가지가 있으며, 그들은 대략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12:1.6 (1226.10) 1. 길이는, 공간을 통하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것—진화, 진보의 방향과 본성을 나타낸다

112:1.7 (1226.11) 2. 수직의 깊이는 유기체적 본능과 태도들, 자아-실현의 다양한 차원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반응의 일반적 현상을 포용한다.

112:1.8 (1226.12) 3. 폭은 조화-협동, 관계적-연합, 그리고 자아신분 조직화의 권역을 포용한다.

112:1.9 (1226.13) 유란시아 필사자들에게 증여된 개인성 유형은 자아-표현 또는 개인-실현의 일곱 규모상의 잠재성을 갖는다. 이들 규모상의 현상은 유한 차원에서 셋으로, 아(亞)절대 차원에서 셋으로, 그리고 절대 차원에서 하나로 실현가능 하다. 하위-절대 차원들에서는 이 일곱 번째 또는 전체성 규모가 개인성의 사실로 체험될 수 있다. 이 최극 규모는 연관할 수 있는 절대이며, 무한하지는 않지만, 절대자의 하위-무한 침투를 위한 규모적으로 잠재적인 것이다.

112:1.10 (1226.14) 개인성의 유한 규모들은 조화우주 길이, 깊이 그리고 폭과 관계를 가지며; 깊이는 가치를 의미하고; 폭은 통찰력—조화우주 실체의 도전할 수 없는 의식을 체험하는 능력을 포용한다.

112:1.11 (1227.1) 모론시아 차원에서는 물질 차원의 이 모든 유한 규모들이 크게 증진되며, 특별한 새로운 규모상의 가치들이 실현가능 하다. 모론시아 차원의 이 모든 확대된 규모상의 체험들은 모타의 영향을 통하여 그리고 모론시아 수학의 기여로 인하여 최극 또는 개인성 규모로 놀랍도록 또렷하게 이어가며 밝혀진다.

112:1.12 (1227.2) 필사자들이 인간 개인성에 대한 그들의 학습에서 체험한 많은 문제점들은, 규모상의 차원들과 영적 차원들이 체험적 개인성 실현에서는 조화-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한 창조체가 기억한다면 피할 수 있다.

112:1.13 (1227.3) 생명은 실제로 유기체(자아신분)와 그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다. 개인성은 이 유기체적-환경적 관계적-연합에 정체성의 가치와 연속성의 의미들을 준다. 그리하여 개인성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의 요소로 기능함으로 충동(衝動)-반응(反應)의 현상이 단지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계작용은 태생적으로 수동적이다; 유기체는 태생적으로 능동적이라는 것은 항상 진실이다.

112:1.14 (1227.4) 물리적 삶은 유기체 안에서 보다는 유기체와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모두가 그러한 환경에 반응하는 유기체적 모형들을 창조하고 확립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지향적인 원형틀들은 목표 선택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112:1.15 (1227.5) 자아와 환경이 의미 있는 접촉을 하는 것은 마음의 중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유기체가 환경과의 그러한 의의(意義)깊은 접촉을(욕구에 대한 반응) 이루고자 하는 능력과 기꺼운 마음은 전체 개인성의 태도를 나타낸다.

112:1.16 (1227.6) 개인성은 고립 속에서는 그다지 잘 수행하지 못한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사회적 창조체이다; 소속되어짐에 대한 열망으로 지배된다. "자기 자신에게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은 정말로 맞는 말이다.

112:1.17 (1227.7) 그러나 살아있고 그리고 활동하는 모든 창조체의 전체에서의 의미에서 개인성의 개념은 관계들의 집대성활동보다는 훨씬 더 큰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관계들의 조화-협동은 물론 실체들의 모든 요소들의 통일을 의미한다. 관계들은 두 대상들의 사이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셋 또는 그 이상의 상대자들이 하나의 체계로 결국 생겨나며, 그러한 체계는 단순히 확대되고 복잡하게 된 관계보다 훨씬 큰 것이다. 이 구분은 극히 중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 체계에서 개별존재 구성 요소들은 오직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그리고 전체의 개별존재성을 통해서만 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112:1.18 (1227.8) 인간의 유기체에서 부분들의 합계는 자아신분—개별존재성—을 구성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과정은, 이 모든 요소들을 조화우주 실체와 관련되는 것으로 통합하는 자인, 개인성과는 어떤 관련도 없다.

112:1.19 (1227.9) 집대성에서는 부분들이 합해진다; 체계들에서는 부분들이 배열된다. 체계들은 조직—자리상의 가치로 인하여 의의(意義)깊다. 좋은 체계에서는 모든 요소들이 조화우주 자리에 있다. 나쁜 체계 내에서는 어떤 것들이 모자라거나 바뀌어져—혼란되어 있다. 인간 체계에서

모든 활동들을 통합하고 그리고 정체성과 창조성의
본질특성을 차례로 주는 것은 개인성이다.

제 2 장. 자아

112:2.1 (1227.10)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자아신분을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112:2.2 (1227.11) 1. 물리적 체계들은 종속적이다.

112:2.3 (1227.12) 2. 지적 체계들은 조화-협동적이다.

112:2.4 (1227.13) 3. 개인성은 초(超)서임(敍任)적이다.

112:2.5 (1227.14) 4. 내주하는 영적 기세는 잠재적으로 지도적이다.

112:2.6 (1228.1) 자아신분의 모든 개념에 있어서, 삶의 사실이
우선이며 평가 또는 해석은 차후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어린 아이들은 먼저 살며 자기의 삶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조화우주 질서에
있어서 통찰력은 예견보다 앞선다.

112:2.7 (1228.2)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는 우주 사실은 인간
개인성의 모든 가치와 모든 의미를 언제까지나
바꾸어버렸다. 단어의 참된 의미에 있어서, 사랑은

인간적이거나 신성하거나 또는 인간적이면서 그리고 신성한, 모든 개인성의 상호관심을 의미한다. 자아의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생각, 느낌, 소망—으로 기능할 수 있으나, 전체 개인성의 조화-협동하는 속성들은 지능 행동에서 집중된다; 이들 모든 힘은 인간 존재가 진심으로 그리고 사심-없이 인간 또는 신성한 다른 존재를 사랑할 때 필사자 마음의 영적 자질과 연관된다.

112:2.8 (1228.3) 실체에 대한 모든 필사자 개념들은 인간 개인성의 실재성에 대한 가정에 기초를 둔다; 초인적 실체들의 모든 개념들은 어떤 연관된 영적 실존개체들 그리고 신성한 개인성들의 우주적 실체들과 함께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 개인성의 체험에 기초를 둔다. 인간 체험에 있어서의 모든 비(非)영적인 것들은, 개인성을 예외로 하고, 결과에 대한 수단이다. 필사자 사람과 다른 개인들—인간적이거나 또는 신성하거나—과의 모든 참된 관계는 그 자체가 하나의 끝이다. 그리고 신(神)의 개인성과의 그러한 친교가 우주 상승의 영원한 목표이다.

112:2.9 (1228.4) 자아신분의 합일과 개인성의 자아-의식이 초물질 세계의 자질이므로, 개인성의 소유가 사람을 영적

존재로서 정체화한다. 필사자 물질주의자들이 초물질적 실체들의 실존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자체가, 저절로 그리고 그것에서 그의 인간 마음에 영의 합성과 우주 의식이 현존한다는 것을 실증하고, 그리고 작용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112:2.10 (1228.5) 물질과 생각 사이에는 거대한 조화우주 틈이 존재하며, 이 틈은 물질적 마음과 영적 사랑 사이에서는 짚 수도 없을 만큼 더욱 크다. 자아-의식은 말할 것도 없고, 의식은 기계적 전기적 결합이나 물질적 에너지 현상의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112:2.11 (1228.6) 마음이 실체를 그 궁극적 분석에까지 추구함에 있어서, 물질은 물질적 감각으로 사라지지만 아직 마음속에 실제적인 것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물질이 사라진 후에 남아 있는 그 실체를 영적인 통찰력이 추적하고 궁극적 분석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것은 마음속으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영의 통찰력은 아직도 우주 실체들과 영적 본성의 최극 가치들을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은 철학에게 양보하며, 한편으로 철학은 참된 영적 체험 속에 선천적인 귀결들에게 항복해야만 한다.

생각은 지혜에게 항복하며, 지혜는 깨우치고 반영적인 경배에서 사라진다.

112:2.12 (1228.7) 과학에서 인간 자아는 물질세계를 관찰한다; 철학은 물질세계의 이 관찰에 대한 관찰이다; 종교, 참된 영적 체험은 시간과 공간에 있는 에너지 물질들의 모든 이러한 상대적 합성을 관찰하는 것을 관찰하는 조화우주 실체의 체험적 실현화이다. 배타적 물질주의 위에 우주의 철학을 세우는 것은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처음에는 인간 의식의 체험 안에서 실제로서 착상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관찰자가 관찰되는 사물이 될 수는 없다; 평가는 평가되는 대상을 어느 정도 초월함이 필요하다.

112:2.13 (1228.8) 시간 속에서, 생각은 지혜가 되고 지혜는 경배가 된다; 영원 속에서는, 경배는 지혜가 되고, 지혜는 생각의 최종으로 결국 생겨난다.

112:2.14 (1229.1) 진화하는 자아 통일의 가능성은 구조적인 요소들: 기초적 에너지들, 주요 조직들, 기초적인 화학적 전반적-통제, 최극 개념들, 최극 동기들, 최극 목표들, 그리고 파라다이스 증여의 신성한 영—사람의 영적

본성의 자아-의식함의 비밀, 이들 요소들의 본질특성 속에
선천적이다.

112:2.15 (1229.2) 조화우주 진화의 목적은 증가하는 영의 통치,
생각 조절자의 인도와 가르침에 대한 의지적 반응을
통하여 개인성의 합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개인성은,
인간과 초인간 모두에, "통치의 진화"라고 불릴 수도 있는,
그 자신과 환경 둘 모두에 대한 통제의 확대인, 선천적
조화우주 본질특성으로 특징지어진다.

112:2.16 (1229.3) 한때 인간이었던 상승하는 개인성은 우주 안에서
그리고 자아 위에서의 점점 증가되는 의지작용의
통치에서의 두 개의 커다란 위상을 통과하며 지나간다:

112:2.17 (1229.4) 1. 최종자-이전(以前)존재, 즉 조화우주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따라서 일어나는 우주 통달과 함께하는
정체성 확대와 실재화구현의 기법을 통하여 자아-실현이
증강하고 있는 하느님을-찾는 체험

112:2.18 (1229.5) 2. 최종자-이후(以後)존재, 즉 하느님과-같음을-
이름의 신성한 차원들을 아직 얻지 못한 하느님-찾는 지능

존재에게, 체험의 최극존재를 계시함으로서 자아-실현의 창조적 확대를 이루는 하느님을-계시하는 체험.

112:2.19 (1229.6) 하강하는 개인성들은 최극자, 궁극자, 그리고 절대자 신(神)들의 신성한 의지들을 확인하고 집행하기 위한 확대되는 수용능력을 찾아가면서 그에 따른 그들의 다양한 우주 모험들을 통하여 비슷한 체험들을 달성한다.

112:2.20 (1229.7) 물질적 자아, 인간 정체성의 자기-실존개체는 물리적인 삶 동안에, 물질적 생명 매체의 계속적인 기능, 유란시아에서는 생명이라고 불리는 에너지들과 지성의 불안정한 평형의 계속되는 실존에, 의존한다. 그러나 생존되는 가치의 자아신분, 죽음의 체험을 초월할 수 있는 자아신분은, 과도기 생명 매체—물질적 몸체—로부터 모론시아 혼의 더욱 오래 견디고 그리고 불멸의 본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를 넘어 혼이 영 실체의 입김을 받고 결국에는 영 실체의 지위를 달성하는 차원들까지, 진화하는 개인성 정체성의 자리에 잠재적 전환을 이름으로써만 진화된다. 물질적 관계적-연합으로부터 모론시아 정체화구현까지 이 실재적 전환은 인간

창조체가 하느님을 추구하는 결정들에 있어서의 성실성, 지속성 그리고 불변성에 의해 달성된다.

제 3 장. 죽음의 현상

^{112:3.1 (1229.8)} 유란시아인 들은 일반적으로 한 가지만의 죽음, 생명 에너지들의 물리적 중단만을 인지하고 있으나; 개인성 생존과 관련하여 본다면 실제로 세 가지가 있다:

^{112:3.2 (1229.9)} 1. 영적 (혼) 죽음. 만일 필사 사람이 생존을 최종적으로 거부하였을 때, 그가 조절자와 생존의 세라핌천사의 공동 견해 안에서 영적으로 파멸, 모론시아적으로 파산이 선고되어졌을 때, 그러한 조화-협동이 유버사에 기록될 때, 그리고 검열관들과 그들의 반영적인 연관-동료들이 이 조사 결과들을 확인한 후, 그런 다음에 오르본톤의 통치자들은 내주 하는 감시자가 즉시 분리될 것을 명령한다. 그러나 조절자의 이러한 분리는, 조절자를 포기한 개별존재와 관계된 개인 또는 집단 세라핌천사의 임무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이러한 종류의 죽음은 물리적 그리고 마음 기능구조들의 살아있는 에너지들의 일시적인 존속에 상관없이 그 의의(意義)에 있어서 최종적인 것이다. 조화우주 입장에서

본다면 그 필사자는 이미 죽은 것이다; 계속되는 삶은 다만 조화우주 에너지들의 물질적 잔여 운동력의 존속을 의미할 뿐이다.

112:3.3 (1230.1) 2. 지적 (마음) 죽음. 보다 높은 보조 사명활동의 생명 순환회로들이 지성의 이상을 통하여 또는 뇌의 기능구조 일부가 파괴됨에 의하여 붕괴될 때, 그리고 만일 이 상태가 회복 불가능한 어떤 한계점을 지나가게 되면, 내주하는 조절자는 즉시 분리되어 신성별로 떠난다. 우주의 기록들에 의하면 필사자의 개인성은 인간의 의지-행동의 본질적 마음 순환회로들이 파괴될 때에는 언제나 죽음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물질적인 육체의 생명 작용이 계속되느냐에 상관없이, 죽은 것이다. 의지적인 마음을 제외한 육체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지만, 그러한 개별존재의 혼(魂)은 인간 의지의 이전(以前) 결정에 따라서 생존될 수도 있다.

112:3.4 (1230.2) 3. 물리적 (몸과 마음) 죽음. 죽음이 인간 존재에게 닥쳐올 때, 조절자는 그 작용이 멈출 때, 측정 가능한 뇌 에너지들이 그들의 주기적인 생명 박동이 멈출 때, 지능적인 기능구조로써 그것이 기능하기를 멈출 때까지

마음의 요새 속에 남아 있다. 이 소멸에 이어서 조절자는 사라지는 마음을 떠나며, 몇 해 전에 입장할 때와 같이 아무 예식도 없이, 유버사를 경유하여 신성별로 나아간다.

112:3.5 (1230.3) 죽음 후에 물질적인 육체는 그것이 유래되었던 원소계로 돌아가지만, 생존되는 개인성의 두 가지 비(非)물질적 요소는 존속한다: 선재(先在)하는 생각 조절자는 필사자 생애의 기억 사본과 함께 신성별로 나아간다; 또한 사망한 인간의 불멸하는 모론시아 혼은 운명 수호자의 보호 속에, 그대로 남는다. 혼의 이 위상들과 형태들은, 이들은 한 때 활동적이었으나 지금은 정지된 정체성 구조 공식인데, 모론시아 세계들에서 재(再)개인성구현되는 데에 필수적이다; 모론시아 깨어남의 시기에 생존하는 개인성을 재조립하는 것, 너희를 다시 의식이 들게 하는 것은, 바로 조절자와 혼의 재결합이다.

112:3.6 (1230.4) 개인적인 세라핌천사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집단 보호관리자들이 성실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마찬가지로의 정체성 보존과 개인성 부활의 봉사를 수행한다. 세라핌천사들은 개인성의 재조합에 필수이다.

생각 조절자는 죽음과 함께 일시적으로 개인성을 잃어버리지만, 정체성은 잃지 않는다; 인간 주체는 일시적으로 정체성을 잃으나 개인성은 잃지 않는다; 맨션세계들에서 이 둘은 영원한 현시활동으로 재(再)연합한다. 떠났던 생각 조절자는 전에 내주하였던 똑같은 존재로서는 땅에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개인성은 인간 의지 없이 결코 현시되지 않는다; 그리고 조절자와 분리된 인간 존재는 죽은 후에 활동적인 정체성을 결코 현시하지 않으며, 어떤 방법으로도 땅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와 교통하지 않는다. 조절자가 분리된 그러한 영들은 죽음 속에 길게 또는 짧게 잠들어 있는 동안 완벽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무의식적이다. 생존이 완성될 때까지는 다른 개인성들과 교통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개인성이나 능력도 나타날 수 없다. 맨션세계들로 가는 자들은 거꾸로 그들이 사랑하던 자들에게 소식을 보내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섭리시대 동안에는 그러한 교통이 전 우주들에 걸쳐서 금지되어 있다.

제 4 장. 죽음 이후의 조절자

112:4.1 (1231.1) 물질적, 지적, 또는 영적 본성의 죽음이 발생했을 때, 조절자는 필사자 주인에게 작별의 인사를 고하고 신성별을 향하여 떠난다. 지역우주와 초우주의 본부로부터 반영적 접촉이 두 정부의 감독자들과 이루어지며, 그 감시자는 시간의 권역들 안으로 진입 시 기록된 것과 똑같은 번호에 의해 분류되어 등록된다.

112:4.2 (1231.2) 어떤 면에서 충분히 납득되지는 않지만, 우주 검열자들은 영적 가치들과 내주 하였던 마음의 모론시아 의미들에 대한 조절자의 복사본 안에 체현된 인간 삶의 개요를 구할 수 있다. 검열관들은 사망한 인간의 생존되는 성격과 영적 본질특성들에 대한 조절자의 해석을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모든 자료들은, 세라핌천사의 기록들과 함께, 관련된 개별존재의 판결에 제시될 수 있다. 이 정보는 행성 섭리시대의 공식적 종료 이전에, 필사자의 소멸과 더불어, 맨션세계들로 나아가는, 특정한 상승자들이 그들의 모론시아 생애를 즉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초우주 명령들을 확인하는 데에도 또한 사용된다.

112:4.3 (1231.3)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옮겨진 개별존재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물리적인 죽음 이후에, 분리된 조절자는 즉시 신성별의 고향 구체로 간다. 생존되는 필사자가 사실적으로 다시 나타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그 세계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는 자세한 것은 주로, 그 인간 존재가 그의 개별적 권한으로 맨션세계들로 상승하는지 또는 행성 시대의 잠자는 생존자로서의 섭리시대 호출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112:4.4 (1231.4) 만일에 필사자 연관-동료가 한 섭리시대의 끝에 재(再)개인성구현 될 집단에 속해 있다면, 조절자는 봉사하였던 이전 체계의 맨션세계로 곧바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지만, 선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일시적으로 할당된 임무들 중의 하나에 임하게 될 것이다:

112:4.5 (1231.5) 1. 알려지지 않은 봉사를 위하여, 사라진 감시자의 무리 안으로 소집됨.

112:4.6 (1231.6) 2. 파라다이스 체제의 감시를 위하여 얼마 동안 배정됨.

112:4.7 (1231.7) 3. 신성별의 여러 훈련 학교들 중의 하나에 입학함.

112:4.8 (1231.8) 4. 파라다이스 세계들의 아버지 순환회로를 구성하는 다른 여섯 개의 신성한 구체들 중의 하나에 학생 관찰자로 얼마동안 배치됨.

112:4.9 (1231.9) 5.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의 메신저업무에 배정됨.

112:4.10 (1231.10) 6. 순결 집단에 속한 감시자들의 훈련에 바쳐진 신성별의 학교에서 연관-동료 강사가 됨.

112:4.11 (1231.11) 7. 인간 동반자가 생존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결과가 나왔을 때 봉사할, 가능한 세계들의 집단을 선택하는 데에 배정된다.

112:4.12 (1231.12) 죽음이 너희에게 닥쳐 올 때, 만일 너희가 세 번째 순환계 또는 보다 높은 영역을 달성하였고 그리하여 개인적 운명수호천사가 너희에게 배정되었다면, 그리고 만일 조절자에 의해 제출된 생존하는 성격에 대한 요약의 최종 사본이 운명 수호천사에 의해 무조건 보증된다면—만일 세라핌천사와 조절자 모두가 그들의

삶에 대한 기록들과 추천 내용들의 모든 항목들에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면—만일 우주 검열자들과 유버사에 있는 그들의 반영 연관-동료들이 이 자료를 확인하고 얼버무리거나 보류함이 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러한 경우에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진보된 신분을 허락하는 명령을 구원자별로 가는 통신 순환회로들 위로 하달하며, 그렇게 해서, 네바돈의 주권자의 법정, 증서는 맨션세계들에 있는 부활이 일어나는 곳으로 생존되는 혼이 즉시 통과되도록 명할 것이다.

112:4.13 (1232.1) 만일 인간 개별존재가 연기됨이 없이 생존되면, 내가 배운 바로는, 조절자가 신성별에 등록하고, 우주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현존에게로 나아가며, 즉시 돌아와서 배정된 지역우주와 초우주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에 의해 포용되어, 신성별의 개인성구현된 감시자 우두머리로부터의 인지를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서 즉시 “정체성 변환의 실현”을 통과하면서, 그때부터 운명 수호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투사되어 온 형태로서, 지상 필사자의 생존하는 혼의 수용을 위해 준비된 실재적인 개인성 형태 안으로, 세 번째 기간에, 맨션세계에서 호출된다.

제 5 장. 인간 자아의 생존

112:5.1 (1232.2) 자아신분은 물질적이든지, 모론시아적이든지, 또는 영적이든지 하나의 조화우주 실체이다. 개인적인 자의 실재성은 스스로 또는 그의 다양한 우주 대리자들을 통하여 활동하는 우주 아버지의 증여이다. 어떤 존재가 개인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떤 존재의 상대적 개별존재 생성화를 조화우주 유기체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조화우주는 실제적인 단위들이 거의 무한으로 집대성된 집합체이며, 그 모든 것들은 전체의 운명에 상대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그러한 자들은 운명 수용 또는 운명 거부의 실재적인 선택과 함께 자질로서 부여되어 왔다.

112:5.2 (1232.3)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것은 아버지처럼 영원하며, 그것이 하느님의 실재적인 단편인 신성한 생각 조절자의 것인 것처럼, 하느님이 그 자신의 자유의지 선택으로 주어진 개인성에 대해서도 진실이다. 사람의 개인성은 영원하지만 정체성으로 본다면 조건적인 영원한 실체이다. 아버지의 의지에 응하여 나타난, 개인성은 신(神) 운명을 달성할 것이지만, 사람은 그러한 운명의 달성에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러한

선택에서의 불이행에서는, 개인성은 체험적 신(神)에 직접 도달하며, 최극존재의 한 부분이 되어간다. 순환주기는 운명 지어져 있지만, 그곳에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선택적이고, 개인적이며, 또한 체험적이다.

112:5.3 (1232.4) 필사자의 정체성은 우주에서 과도기적인 시간-생명 상태에 있다; 개인성은 계속되는 우주 현상이 되려고 선택하는 한에서만 실제적이다. 이것이 사람과 에너지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인데: 에너지 체계는 계속되어야 하면서, 선택이 없지만; 사람은 그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 조절자는 진실로 파라다이스에 이르게 하는 길이지만, 사람 자신은 자신의 결정, 그의 자유 의지적 선택에 의해서 그 길을 추구해야만 한다.

112:5.4 (1232.5) 인간 존재들은 오직 물질적 감각에서만 정체성을 갖는다. 자아(自我)의 그러한 본질특성들은 그것이 지능의 에너지 체계 속에서 기능함으로써 물질적 마음에 의해서 표현된다. 사람이 정체성을 갖는다고 말할 때, 그는 인간 개인성 의지의 선택과 행동들에 종속되는 것으로 위치한 마음 순환회로를 소유하는 것으로 인지된다. 그러나 이것은 태아가 인간 생명의 과도기적인 기생 단계인

것처럼 물질적이며 순전히 일시적인 현시활동이다. 조화우주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은 시간의 상대적 순간 속에서 낳고, 살다가 죽으며; 그들은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필사자의 개인성은 그 자신의 선택을 통하여 그 정체성의 자리를 지나가는 물질-지성 체계로부터, 생각 조절자와 관계적-연합하여 개인성 현시활동을 위해 새로운 매체로 창조되는 보다 높은 모론시아-혼 체계로, 바꾸어주는 힘을 소유하고 있다.

112:5.5 (1233.1) 그리고 사람의 가장 위대한 기회, 그의 최극 조화우주 책임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이 선택의 힘, 자유의지의 창조체 신분의 우주적 표식이다. 미래 최종자의 영원한 운명은 인간 의지작용의 고결한-순수성에 달려 있다; 신성한 조절자는 영원한 개인성을 필사자의 자유 의지의 성실성에 의존한다; 우주 아버지는 새로이 상승하는 아들의 실현을 위하여 필사자 선택의 신실성에 의존한다; 최극존재는 체험적 진화의 실재성을 위하여 결단-행동들의 지혜와 불변성에 의존한다.

112:5.6 (1233.2) 개인성 성장의 조화우주 순환계들이 결국에는 달성될 것이지만, 만일 너희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시간의

우연한 사고들과 물질 실존의 장애가 너희가 태어난
행성에서 이 차원들을 정복하지 못하게 한다면, 만일에
너희의 의도와 욕구들이 생존될만한 가치가 있다면,
보호관찰 연장의 판결이 내려진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잘 제공받게 될 것이다.

112:5.7 (1233.3) 한 인간 정체성을 맨션세계들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에 있어서 만일 의구심이 언제라도
있으면, 우주 정부들은 반드시 그 개별존재의 개인적 이익
안에서 결정을 내린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창발하는
모론시아 의도와 영적 목적에 대한 관찰을 계속하면서,
주저하지 않고 그러한 혼이 과도적 존재로 나아가게 한다.
그리하여 신성한 공의가 성취에서 확실하며, 신성한
자비는 그 확장하는 사명활동에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112:5.8 (1233.4) 오르본톤과 네바돈의 정부들은 필사자의
재(再)개인성구현되는 우주 계획의 세부 작업에 대하여
절대적 완전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참을성,
관용, 납득, 그리고 자비로운 동정심을 현시하기를
주장하고, 또 실재로 그렇게 한다. 우리는 어느 진화하는

세계에서 악전고투하는 한 명의 필사자로 부터 상승하는 생애를 추구하는 영원한 기쁨을 빼앗는 위험을 자초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체계가 반역하는 위험을 무릅쓰겠다.

112:5.9 (1233.5) 이것은 인간 존재들이 첫 번째의 기회를 거절한 마당에 두 번째의 기회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모든 의지 창조체들이 의심의 여지없이, 자아-의식적인, 그리고 최종적인 선택을 한 번 할 수 있는 한 번의 참된 기회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주들의 주권을 가진 재판관들은 영원한 선택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내리지 않은 개인성 지위의 어떤 존재도 박탈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혼은 그 참된 의도와 실제 목적을 게시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풍부한 기회가 반드시 그리고 그렇게 주어질 것이다.

112:5.10 (1233.6) 보다 더 영적으로 그리고 우주적으로 진보된 필사자들이 죽게 되면, 그들은 즉시 맨션세계들로 나아간다; 일반적으로 이 규정은 그들에게 배정되었던 개인적 세라핌천사 수호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다른 필사자들은 아마도 그들의 관련사들에 대한 판결이

완료될 때까지 지연되며, 그 후에 그들이 맨션세계들로
향하게 되거나 또는 현재의 행성 섭리시대가 끝날 때
통틀어서 재(再)개인성구현될 참자는 생존자들의 집단에
배정될 것이다.

112:5.11 (1233.7) 죽음에서의 너희, 즉 떠나가는 조절자와는 다른,
생존되는 너희에게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려는 나의
노력을 방해하는 두 개의 어려움이 있다. 하나는 물리적
세계와 모론시아 세계의 경계지점에서 일어나는
활동행위에 대하여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적당한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다른 하나는 유란시아의
천상의 통치 권한들에 의해 진리 계시자인 나의 위원회에
내려진 제약들 때문에 야기된다. 거기에는 보여줄 만한
흥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너희의 직접적인 행성
감독자들의 충고에 따라 그것들을 보류한다. 그러나
나에게 허락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도는 말할 수
있다:

112:5.12 (1234.1) 죽음 이후에 생존하는 실제적인 어떤 것, 인간
진화의 어떤 것, 신비 감시자에 더해지는 어떤 것이 있다.
새롭게 나타나는 이 실존개체는 혼이며, 이것은 너희의

물리적인 몸과 물질적인 마음 둘 모두의 죽음에서 생존한다. 이 실존개체는 신성한 너, 조절자와 관계를 가지는 인간인 너의 노력들과 그리고 병합된 생명의 공동 자녀이다. 인간과 신성한 어버이로부터 나온 이 자녀는 이 세상에서 기원된 것 중에 살아남는 요소를 이루며; 그것은 모론시아 자아, 불멸의 혼이다.

112:5.13 (1234.2) 존속하는 의미와 생존되는 가치의 이 자녀는 죽음으로부터 재(再)개인성구현 될 때까지 전혀 무의식이며 기다리는 전체의 이 기간 동안 세라핌천사 운명 수호자에 의해 보관된다. 너희는 일단 죽고 나면, 사타니아의 맨션세계들에서 모론시아의 새로운 의식을 획득할 때까지 의식적인 존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112:5.14 (1234.3) 죽음에서 인간 개인성과 연관된 기능상의 정체성은 생명 동작의 중지를 통하여 중단된다. 인간 개인성은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들을 초월하지만, 기능상의 정체성에 관하여는 그들에게 의존한다. 생명의 정지는 마음 자질을 위한 물리적 뇌 원형틀들을 파괴하며, 마음의 두절은 필사자 의식을 종결시킨다. 그 창조체의

의식은 그 후에 살아있는 에너지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기능하는 동일한 인간 개인성을 허용하게 될 조화우주 상황이 준비될 때까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112:5.15 (1234.4) 생존되는 필사자가 본래의 세계로부터 맨션세계들로 통과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세 번째 기간에 개인성 재조합을 체험하든지 아니면 집단적 부활의 때에 상승하든지 간에, 개인성 구성에 대한 기록은 천사장들에 의해 그들의 특수 활동 세계들에 보존된다. 이 존재들은 개인성의 보호관리자는 아니지만 (수호자 세라핌천사들이 혼의 보호관리자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화할 수 있는 개인성의 모든 요소들이 필사자 생존에 의존할만한 이들 보관인들에 의해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사실이다. 죽음과 생존 사이에 개재되어 있는 시간 동안 개인성의 정확한 행방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112:5.16 (1234.5) 재(再)개인성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그 상황은 지역우주의 모론시아 접수 행성에 있는 부활(復活)의 방들에서 일어난다. 바로 이 생명-조합실들 속에서 감독하는 권한자들이 잠자고 있는 생존자들에게 다시

의식화되도록 하는 우주 에너지들의 관계를—모론시아적, 마음적, 그리고 영적—준비한다. 한때 물질적인 개인성의 성분이 되는 부분들의 재결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용한다:

112:5.17 (1234.6) 1. 새로운 생존자가 그 안에서 비(非)영적인 실체와 접촉할 수 있고, 그리고 우주 마음의 모론시아 변형이 회로화 되는 적당한 형태, 모론시아 에너지 원형틀의 조립.

112:5.18 (1234.7) 2. 기다리는 모론시아 창조체에게 조절자가 돌아옴. 조절자는 너희의 상승하는 정체성의 영원한 보호관리자이다; 너희의 감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너 자신이 너희의 개인성 자각을 위하여 창조된 모론시아 형태를 차지할 것을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그리고 조절자는 생존되는 너희 자아에게 파라다이스 안내의 역할을 한 번 더 수행하기 위하여 너희 개인성 재(再)집합 시에나타날것이다.

112:5.19 (1235.1) 3. 재(再)개인성구현에 필요한 이 조건들이 합쳐질 때, 잠자는 불멸의 혼의 잠재성의 세라핌천사 보호관리자는, 많은 조화우주 개인성들의 도움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론시아 마음-육체 형태 위에 그리고 그 안에, 한편으로는 이 진화하는 최극의 자녀를 기다리는 조절자와의 영원한 관계적-연합에게 맡기면서, 이 모론시아 실존개체를 증여한다. 그리고 이것은 기억, 통찰력, 그리고 의식—정체성—의 재집합, 재(再)개인성구현을 완료한다.

112:5.20 (1235.2) 재(再)개인성구현의 사실은, 깨어나는 인간 자아에 의해 새롭게 분리된 조화우주 마음의 회로화된 모론시아 위상의 획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성의 현상은 우주 환경에 대한 자아신분 반작용의 정체성의 지속성에 의존한다; 이것은 오직 마음의 중재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자아신분은 자아의 구성성분인 모든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 그 변화는 물리적 삶 속에서 점진적이다; 그 변화는 죽음과 재(再)개인성구현에서는 돌연히 일어난다. 모든 자아신분(개인성)의 진정한 실체는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끊임없는 변화 덕분에 우주 상황에 민감하게 기능할 수 있다; 정지 상태는 필연적인 죽음에서 끝이 난다. 인간의 생명은 불변하는 개인성의 안정성에 의해 통합되는, 생명의 요소들의 끝없는 변화이다.

112:5.21 (1235.3) 그리고 너희가 예루셈의 맨션세계들에서 깨어날 때, 너희는 너무나 변화되어 있고, 영적 변환이너무나 커서, 새로운 세상들에서 너희의 새로운 삶을 처음 세계에서의 너희의 지난 삶과 충분히 연결해주는 너희의 생각 조절자나 운명 수호자들이 아니었다면, 처음에는 너희가 새로운 모론시아 의식과 너희의 이전 정체성에 대하여 소생되는 기억을 연결시키는 데에 어려웠을 것이다. 개인적 자아신분의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필사자 삶의 대부분은 처음에는 희미하고 몽롱한 꿈과 같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은 많은 필사자 관계적-연합들을 뚜렷하게 할 것이다.

112:5.22 (1235.4) 생각 조절자는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의 우주 생애에 필수적이며 그 부분들을 이루는 기억들과 체험들만을 다시 불러와 숙달시킬 것이다. 만약 조절자가 인간 마음속의 어떤 것의 진화에 동반자였다면, 이들 가치 있는 체험들은 조절자의 영원한 의식 속에 생존할 것이다. 그러나 영적 의미도 없고 모론시아 가치도 없는 너희의 과거 삶과 그 기억의 대부분은 물질적 뇌와 함께 사멸될 것이다; 너희를 모론시아 차원으로 가도록 다리를 놓아주었던 물질적 체험의 대부분은 우주 안에서 어떤

목적에 더 이상 소용되지 않는 한때의 발판으로 지나가 버릴 것이다. 그러나 개인성과 개인성들 간의 관계들은 결코 사멸되지 않는다; 개인성 관계들에 대한 필사자의 기억은 조화우주 가치를 가지고 존속될 것이다. 맨션세계에서, 짧지만 흥미로웠던 유란시아의 일생 동안에 한때 관계를 가졌던 연관-동료들을 너희가 알아보고 또 그들도 너희를 알 것이며, 더욱이 너희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도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제 6 장. 모론시아 자아

^{112:6.1 (1235.5)} 애벌레의 단계로부터 나비가 생기듯이, 인간 존재의 참된 개인성도 맨션세계들에서 생겨나는데, 한때 그들이 물질적 육신 속에 가리어졌던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지역우주에서의 모론시아 생애는 혼 실존의 초기 모론시아 차원으로부터 진화적 영성의 최종 모론시아 차원에 이르기까지 개인성 기능구조의 계속적인 증진과 관계가 있다

^{112:6.2 (1235.6)} 지역우주 생애를 위한 너희의 모론시아 개인성 형태들에 관하여 너희를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다. 너희는 개인성 현시의 모론시아 원형틀들이 자질로서 부여될

것이며, 이것들은,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너희의 이해력을 뛰어 넘는 투자 자산이다. 그러한 형태들은 전적으로 실제적인 반면에, 너희가 지금 납득하는 물질적 계층의 에너지 원형들들은 아니다. 어찌되었든지, 그들은 너희의 물질적인 육체가 인간이 탄생된 행성에서 하는 것처럼 지역우주 세계에서 동일한 목적에 봉사한다.

112:6.3 (1236.1) 어느 정도까지는, 물질적 육체-형태의 출현이 개인성 정체성의 성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물리적인 육체는 제한된 정도 내에서 개인성의 선천적인 자연본성의 어떤 것을 반영한다. 모론시아 양식은 더욱 더 그러하다.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 필사자들은 내부적으로는 추할지라도 외부적으로는 아름다울 수도 있으나; 모론시아 삶에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것의 더 높은 차원들에서, 개인성 형태는 내적 개인의 본질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외부적 형태와 내부 본성이 완벽한 정체화구현에 접근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점점 높아지는 영적 차원에 따라 점점 더 완전하게 자라간다.

모론시아 상태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는 오르본톤에 있는 주(主) 영이 갖는 조화우주-마음 자질의 네바돈 변형을 자질로서 부여받는다. 소멸된 필사자 지능은, 창조 영의 획일적인 마음 순환회로들과 동 떨어져, 초점화구현된 우주 실존개체로서의 존재하는 것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나 필사자 마음의 의미들과 가치들은 소멸되지 않는다. 마음의 특정한 위상은 생존되는 혼 속에서 계속 된다; 이전의 인간 마음의 어떤 체험적 가치들은 조절자에 의해 유지된다; 그리고 육신으로 살았던 것으로서, 인간 삶의 기록들은, 상승하는 필사자의 최종적인 평가와 관계되는 존재들, 세라핌천사로부터 우주 검열자까지 그리고 아마도 최극자 너머까지 확장되는 수많은 존재들안에서의 어떤 살아있는 기록들과 함께, 지역우주 안에서 그대로 존속된다.

창조체 의지작용은 마음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물질적 지능의 결손에도 불구하고 존속한다. 생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시간 동안, 상승하는 개인성은 인간 삶으로부터 선천적인 성격 원형틀들에 의해 그리고 모론시아 모타의 새롭게 나타나는 행동에 의해 대부분 안내된다. 그리고 맨션계의 행위로의 이

안내들은 모론시아 삶의 초기 단계에서 그리고 상승하는 개인성의 충분히 자란 의지적 표현으로서 모론시아 의지의 창발 이전에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능한다.

112:6.6 (1236.4) 지역우주에서 인간 실존의 일곱 보조 마음-영들에 필적할 만큼 영향을 주는 것들은 없다. 모론시아 마음은 이 조화우주 마음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하여, 이 조화우주 마음이 지역우주 지성의 창조적 근원에—신성한 사명활동자—의해 수정되고 변형되듯이, 이에 따라 진화해야만 한다.

112:6.7 (1236.5) 죽음 이전의 필사자 마음은 조절자 현존으로부터 자아-의식적으로 독립적이다; 보조 마음은 오직 그것이 작동되도록 연관된 물질-에너지 원형틀만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초월적으로 보조하는 모론시아 혼은 물질-마음 기능구조가 제거되었을 때에는 조절자 없이 자아-의식을 보유하지 못한다. 아무튼, 이 진화하는 혼은 전에 연관된 보조 마음의 결정으로부터 유래된 지속적인 성격을 소유하며, 그리고 이 성격은 원형틀이 되돌아오는 조절자에 의해 그로서 힘을 얻게 될 때 활성화된 기억이 되어간다.

112:6.8 (1236.6) 기억의 지속성은 기원적 자아신분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증명이다; 그것은 개인성의 지속과 확대에 대한 완벽한 자아-의식에 필수적이다. 조절자 없이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인간의 기억을 다시 소생시키기 위하여 세라핌천사 연관-동료의 지시에 의존한다; 다른 한편으로, 영-융합 필사자들의 모론시아 혼은 제한이 없다. 기억의 원형들은 혼 속에 존속하지만, 이 원형들이 계속되는 기억으로 즉시 자아-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전(以前) 조절자의 현존을 필요로 한다. 조절자가 없이 생존된 필사자는 이전(以前) 실존의 의미들과 가치들의 기억 의식을 다시 탐구하고 다시 배우고, 도로 붙잡는 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112:6.9 (1237.1) 생존될 가치가 있는 혼은 자아신분 정체성이 있던 이전의 자리인, 물질적 지능의 양적 질적 행동과 동기들 둘 모두를 반영한다. 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사자 마음은 지혜의 영의 지도로 통합된 일곱 개의 보조 마음-영들의 감독 하에 모론시아 이전의 우주 생애를 시작한다. 그 후에, 모론시아 이전에 성취하는 일곱 순환계를 완성함에 따라서, 보조 마음위에 주어진 모론시아 마음 자질수여의 초(超)부담(負擔)은

지역우주 진보의 영-이전(以前)의 생애 또는 모론시아 생애를 시작하게 한다.

112:6.10 (1237.2) 창조체가 그가 태어난 행성을 떠날 때, 그는 보조자의 사명활동을 뒤로하고 떠나며, 모론시아 지능에 의존하게 될 뿐이다. 상승자가 지역우주를 떠날 때에, 그는 모론시아 차원을 넘어서, 실존으로서의 영적 차원을 달성한다. 새롭게 나타나는 이 영적 실존개체는 그 다음에 오르본톤의 조화우주 마음의 직접 사명활동에 맞추어지게 된다.

제 7 장. 조절자 융합

112:7.1 (1237.3) 생각 조절자와의 융합은 그 전에는 오직 가능성만 있었던 개인성에게 영원한 실재성을 준다. 이 새로운 자질들 중에 언급될 수 있는 것은: 신성 본질특성의 정착, 과거-영원의 체험과 기억, 불멸성, 그리고 분별화된 잠재적 절대성의 위상들이다.

112:7.2 (1237.4) 너희가 일시적인 형태 속에서 가졌던 이 땅에서의 과정이 모두 지나갈 때, 너희는 더 나은 세계의 해안에서 깨어날 것이며, 결국에는 영원한 포옹 속에서 신실한 너희의 조절자와 연합할 것이다. 그리고 이 융합은

하느님과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신비, 유한 창조체 진화의 신비를 이루지만, 그것은 영원히 진실이다. 융합은 상승자별의 거룩한 구체의 비밀이며, 신(神)의 영과 융합되는 체험을 하였던 자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창조체도 시간의 창조체 정체성이 파라다이스 신(神)의 영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때에 공동-결합된 실재적 가치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112:7.3 (1237.5) 조절자와의 융합은 대개 상승자가 지역우주 체계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루어진다. 그것은 자연적인 죽음의 초월로써 원래의 출생된 행성에서 일어날 수 있다; 맨션세계들 중의 하나 또는 그 체계의 본부들에서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는 별자리에 머무는 시간까지 연기될 수도 있다; 또는 특별한 경우에, 상승자가 지역우주 본부에 있을 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112:7.4 (1237.6) 조절자와의 융합이 이루어지면, 그 개인성의 영원한 행로에 있어서 더 이상의 위험은 없다. 천상의 존재들은 오랜 동안의 체험을 통하여 검사를 받았으나, 필사자들은 진화하는 세계와 모론시아 세계에서 비교적 짧고 집약된 시험을 통과한다.

112:7.5 (1237.7) 조절자와의 융합은 인간 본성이 영원한 생애를 위하여 최종적이며 취소할 수 없는 선택을 내렸다고 초우주가 명령을 공포될 때까지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 한 번의 공인이며, 이것이 이루어지면, 융합된 개인성으로 하여금 결국에는 지역우주의 한계를 벗어나 언젠가 초우주의 본부로 나아가게 하는 출국허가가 이루어지며, 그로부터 시간 속의 순례자는 먼 훗날, 하보나 중앙우주로 향하는 긴 비행과 신(神) 탐험을 위한 긴 여행을 위해 2품천사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112:7.6 (1238.1) 진화하는 세계들에서 자아신분은 물질적이다; 그것은 우주 안에 있는 하나의 사물이며 그 자체로는 물질적 실존의 법칙에 종속된다. 그것은 시간 속에서 하나의 사실이며 그것의 변화에 민감하다. 생존의 결정들은 여기에서 형성되어야만 한다. 모론시아 상태에서 자아는 하나의 새롭고 보다 영구적인 우주적 실체가 되며, 그것의 계속적인 성장은 우주들의 마음과 영 순환회로들에 대한 그 증가하는 조율에 근거를 둔다. 생존의 결정들이 이제 확인되고 있다. 자아가 영적 차원을 달성할 때, 그것은 우주 안에서 확고한 가치를 이루며, 이 새로운 가치는 생존의 결정이 내렸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는데, 그 사실은 생각 조절자와의 영원한 융합에 의하여
증명된다. 그리고 참된 우주 가치의 지위를 획득함으로,
창조체는 가장 높은 우주적 가치—하느님—를 찾기 위한
잠재에서 해방된다.

112:7.7 (1238.2) 그러한 융합된 존재들은 우주 반응에 있어서
2중이다: 그들은 세라핌천사들과 아주 다르지 않은, 따로
떨어진 모론시아 개별존재들이다, 그들은 또한
잠재적으로 파라다이스 최종자 계층의 존재이다.

112:7.8 (1238.3) 그러나 융합된 개별존재는 실제로 하나의
개인성이며, 하나의 존재인데, 그의 합일은 우주의 그 어떤
지성에 의해 분석되는 모든 시도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지역우주의 법정을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으로 통과하면서, 그 중에 아무도 사람이나
조절자를, 하나를 다른 이와 분리하여, 정체성을 확인 할
수가 없으며, 너희는 너희 지역우주의 아버지이신
네바돈의 주권자 앞에 최종적으로 인도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시간의 우주에서 그의 창조적 아버지신분이
너희 삶의 사실을 가능하게 하였던, 바로 그 존재의
손으로부터, 너희가 결국에는 우주 아버지를 찾는 너희의

초우주 생애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 신임장을 수여 받게 될 것이다.

112:7.9 (1238.4) 승리한 조절자가 인간성에 대한 숭고한 봉사에 의하여 개인성을 득하고 있는가, 아니면 용맹스러운 인간이 조절자 닮아가기를 성취하려는 진지한 노력으로 불멸성을 획득하고 있는가? 둘 모두 아니다; 단지 그들은 최극자의 상승하는 개인성들의 독특한 계층들 중 하나의 구성원이 갖는 진화를 함께 성취하고 있는 것이며, 그는 언제나 친절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유능한, 더 자라고 발전할만한 자이며, 언제나 위를 향하고 숭고한 상승을 하보나의 일곱 영역들이 통과될 때까지 그리고 한 때 땅에서 기원된 혼이, 파라다이스에 계신 아버지의 실재 개인성에 대한 경배 넘치는 인지(認知)속에 서 있게 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112:7.10 (1238.5) 이 엄청난 상승에 두루 생각 조절자는 미래에 대한 신성한 서약이며 상승하는 필사자의 충분한 영적 안정이다. 그 동안 필사자의 자유의지의 현존은, 조절자에게, 신성하며 무한한 본성의 해방을 위한 영원한 통로를 잘 제공해준다. 이제 이들 두 정체성들은 하나가

되었다; 시간 또는 영원의 어떤 사건도 사람과 조절자를 분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분리될 수 없고, 영원히 결합되어 있다.

112:7.11 (1238.6) 조절자-융합이 이루어지는 세계들에서 신비감시자의 운명은 상승하는 필사자의 그것—최종의 파라다이스 무리단과 동일하다. 조절자도 필사자도 상대방의 충분한 협력과 신실한 도움 없이는 그 독특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 비범한 동반자관계는 이 우주 시대의 모든 조화우주 현상 중에 가장 마음을 사로잡고 놀라게 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112:7.12 (1239.1) 조절자와 융합하는 때로부터, 상승자의 지위는 진화하는 창조체의 바로 그 지위이다. 인간 구성원이 개인성을 먼저 향유하였으며, 그리하여 개인성 인지와 관련된 모든 면에서 조절자보다 우위에 있다. 이 융합된 존재의 파라다이스 본부는 상승자별이고 신성별이 아니며, 하느님과 사람의 이 독특한 병합은 최종의 무리단까지의 모든 길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로 분류된다.

112:7.13 (1239.2) 조절자가, 상승하는 필사자와 일단 융합하면, 그러한 조절자의 번호는 초우주의 기록들로부터

만들어진다. 신성별의 기록들에게 무엇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조절자의 등록은 최종의 무리단의
활동하는 우두머리인 그랜환다의 내부 법정의 비밀
순환계들로 옮겨진다고 추정하고 있다.

112:7.14 (1239.3) 조절자의 융합으로 말미암아 우주 아버지는 그
자신의 선물을 그의 물질적 창조체들에게 주시겠다는
그의 약속을 완성하시며; 그는 그 약속을 모두 이루시고,
신성을 인간성에게 영원히 증여하시려는 그 계획을 더할
나위 없이 이루시게 된다. 이제 이렇게 사실화된
하느님과의 천상의 동반자관계 속에 선천적인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고 실재화하는 인간의 시도가 시작된다.

112:7.15 (1239.4) 생존하는 필사자들의 현재 알려진 운명은 최종의
파라다이스 무리단이다; 이것은 또한 그들의 필사
동행자와의 영원한 연합에 동참하게 된 모든 조절자의
목표이기도 하다. 파라다이스의 최종자는 현재 초우주에
두루 많은 일에 종사하고 있으나, 우리 모두는 일곱 개의
초우주들이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되게 된 후에 그리고 유한
하느님이 현재 이 최극자 신(神)을 감싸고 있는 신비로부터

최종적으로 떠오르는 때의 먼 장래에, 그들은 다른 임무들, 보다 숭고한 임무들을 가질 것이라고 추측한다.

112:7.16 (1239.5) 너희는 중앙우주, 초우주들, 그리고 지역우주들의 조직과 구성원에 대하여 특정한 정도까지 배워왔으며; 현재 이 멀리-퍼지는 창조계들을 다스리는 여러 개인성들 중 일부분에 관한 기원과 성격에 관하여 어느 정도 들어 왔다. 또한 너희는 첫 번째 외부 공간 차원에서 대우주의 가장자리를 벗어나 멀리에서 우주들의 엄청난 은하들이 조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알려준 것을 들어왔다. 또한 이 이야기들 속에서 최극존재가 지금 외부 공간에 있는 미지의 영역들 속에서의 그의 계시되지 않은 제 3차 기능을 밝히고 있음이 암시되었다; 또한 너희는 파라다이스 무리단의 최종자들이 최극자의 체험적 자녀들임을 들었다.

112:7.17 (1239.6) 우리는 조절자와 융합된 필사자들이, 그들의 최종자 연관-동료들과 함께, 최초의 외부 공간 차원의 우주들의 관리-행정에 어떤 방법으로 기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때가 되면 이 거대한 은하계들이 누군가가 거주하는 우주들이 될 것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의 관리-행정자들
중에서 파라다이스의 최종자가 발견될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해하는데, 그들의 본성들은 창조체와 창조자의
혼합의 조화우주 결과이다.

112:7.18 (1239.7) 얼마나 굉장한 모험인가! 얼마나 낭만적인
사건인가! 최극자의 자녀들, 개인성구현되고 인간화된 이
조절자들, 조절자로 되고 영원한 존재가 된 이 필사자들,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본질이 가장 높게 알려진
현시활동과 우주 아버지를 이해하고 성취할 능력이 있는
지적 생명의 가장 낮은 형태의 이 영원한 관계적-연합
그리고 신비스러운 화합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하나의
거대한 창조. 우리는 그러한 합병된 존재들, 창조자와
창조체의 그러한 동반자관계들이 첫 외부 공간 차원의 이
미래 우주들에 두루 실존하게 될 지적 생명의 어떤 그리고
모든 형태들의 뛰어난 통치자들, 비길 데 없는 관리-
행정자들, 그리고 납득하고 동정심이 많은 지도자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12:7.19 (1240.1) 너희 필사자들이 땅에서, 동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너희의 구조는 흙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만일 실재적으로 하고 싶어 한다면, 만일 너희가 진실로 원한다면, 세월의 유산은 분명히 너희의 것이며, 언젠가는 너희가 모든 개인성들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신성한 아들 그리고 체험에서의 최극자 하느님의 자녀라는, 너희의 진정한 성격으로 우주에 두루 봉사할 것이다.

112:7,20 (1240,2) [오르본톤의 단독 메신저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113 편 세라핌천사 운명의 수호자

113:0,1 (1241,1) 시간의 사명활동 영들과 공간의 메신저 무리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시해 왔으니, 우리는 필사자들의 높임과 완전을 위하여 영적 진보의 광대한 생존 계획의 그 모든 것이 마련되어 온, 그러한 개별 필사자에 대한 사명활동에 헌신된 세라핌천사들, 수호천사에 관하여 고찰하게 된다, 유란시아에서 과거의 시대들에 있어서, 이 운명 수호자들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일한 천사들의 집단이었을 것이다. 행성의 세라핌천사들은 생존될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보냄을 받은 섬기는 영들임에 틀림없다. 항상 따라다니는 이 세라핌천사들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위대한 사건들에서 필사 사람의 영적인

조력자로 기능해 왔다. 많은 계시들에서 “천사들에 의하여 말씀이 있었다.”; 하늘로부터의 명령들 대부분이 “천사들의 사명활동에 의해서 받아들여져 왔다.”

113:0.2 (1241.2) 세라핌천사들은 전통적인 하늘의 천사들이다; 너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살면서 너희를 위해 매우 많은 일을 하는 사명활동하는 영들이다. 그들은 인간의 지능이 존재하던 초기부터 유란시아에서 사명활동해 왔다.

제 1 장. 수호천사

113:1.1 (1241.3) 수호천사들에 대한 가르침은 신화가 아니다; 인간 존재들의 일정한 무리들은 실재로 개인 천사들을 소유하고 있다. 예수가, 이것을 아셨기에, 하늘왕국의 자녀 이야기에서 말하였다; “이 어린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겠는데,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내 아버지의 영의 현존을 지켜보기 때문이다”

113:1.2 (1241.4) 기원적으로는, 세라핌천사들이 유란시아의 분리된 종족들에게 명확하게 배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가엘이 증여된 이후로는, 그들이 인간의 지능과

영성(靈性) 그리고 운명에 따라서 배정된다. 지적으로 볼 때, 인류는 다음과 같이 세 부류로 구분된다:

113:1.3 (1241.5) 1. 정상 이하의 마음 소유자들—정상적인 의지력을 구사하지 못하는 자들; 평균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자들. 이 부류는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을 포용한다; 신(神)에 대한 지능적 경배를 드릴 능력이 결여된 자들이다. 유란시아에 있는 정상 이하의 존재들은 구체에서의 삶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공의와 자비가 그들에게 확대되었음을 증언하도록 그리고 그들을 섬기도록 배정된 일단의 세라핌천사들, 많은 케루빔들과 함께 하는 하나의 집단을 소유한다.

113:1.4 (1241.6) 2. 평균적인, 정상적인 유형의 인간 마음 소유자들. 세라핌천사 사명활동의 입장에서 볼 때, 대부분의 남자와 여자들은 인간 진보와 영적 발전의 순환계를 만드는 데에서의 그들의 지위에 따라서 일곱 개의 등급으로 분류된다.

113:1.5 (1241.7) 3. 정상 이상의 마음 소유자들—영적인 성취에 있어서 위대한 결정과 확실한 잠재를 가진 자들; 그들 속에 내주 하는 조절자들과 다소간의 접촉을 누리는 자들;

운명의 다양한 예비무리단들의 구성원들. 어떤 인간이 우연히 어떤 집단에 소속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만약에 그러한 개별존재가 여러 운명예비무리단들 중 어떤 것에라도 소속되게 된다면, 바로 그 때 거기에서, 개인적인 세라핌천사가 배정되고, 그 때부터 이 세상의 생애가 완결되어질 때까지, 그 필사자는 수호천사의 계속적인 섬김과 끊임없는 보호를 누리게 될 것이다. 또한, 어떤 인간 존재가 최극 결정을 내릴 때, 조절자와의 실제적인 약혼이 있을 때, 개인적인 수호자가 즉시 그 혼에게 배정된다.

113:1.6 (1242.1) 소위 정상적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에 대한 사명활동에 있어서, 세라핌천사의 배정은 지성과 영성의 순환계들에 대한 인간 달성에 따라 내려진다. 너희는 일곱 번째 순환계 속에 필사로서 수여된 너희 마음속에서 출발하고 자아-납득과 자아-정복 그리고 자아-정복의 임무 속에서 안쪽으로 여행하며, 내주 하는 조절자와 상대적 접촉과 교제를 이루는 첫 번째 또는 내부 순환계에 당도할 때까지 (만약에 자연적인 죽음이 너희 생애를 종료시켜서 너희의 투쟁을 맨션세계들로 옮겨가지 않는다면) 한 순환계씩 진보를 이룩할 것이다.

113:1.7 (1242.2) 첫 번째 또는 일곱 번째 순환계에 있는 인간 존재들은 1,000명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배정된 한 중대의 보조 케루빔들과 함께 한 명의 수호천사를 갖는다. 여섯 번째 순환계에서는, 한 중대의 케루빔들과 함께 세라핌천사 한 쌍이 500명 집단의 이들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안내하도록 배정된다. 다섯 번째 순환계가 달성되면, 인간 존재들은 약 100명의 집단으로 분류되며, 한 중대의 케루빔들과 함께 한 쌍의 수호 세라핌천사가 책임을 맡게 된다. 네 번째 순환계를 달성하면, 필사 존재들은 10명의 집단으로 묶어지고, 한 쌍의 세라핌천사에게 책임이 주어지며, 한 중대의 케루빔들의 보조를 받는다.

113:1.8 (1242.3) 필사자 마음이 동물적 유산의 타성을 뚫고 들어가서 인간 지성의 순환계를 달성하고 영성을 획득하게 되면, 하나의 개인적 천사가 (실체에서 둘) 상승하는 이 필사자에게 그 후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배정된다. 그리하여 이 인간 혼들은, 언제까지나-제시되어 있하고 점점 더 효력을 발휘하는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들에 덧붙여서, 세 번째 순환계를 완결하고 두 번째를 지나 첫 번째 순환계를 달성하기까지

그들의 모든 수고들에서, 이들 개인적 운명의 수호자들의
전심전력의 원조를 받아들인다.

제 2 장. 운명 수호자

113:2.1 (1242.4) 세라핌천사들은 세 가지 성취, 즉 하느님과-
같음이 되기로 최종 결정을 했거나, 세 번째 순환계에
들어갔거나, 혹은 운명 예비 무리단의 하나에 소집되는
그러한 성취 중에서, 하나 이상을 실현하고 있는 인간 혼의
관계적-연합에 배정되는 그러한 때가 이르기 전에는,
운명의 수호자로 알려지지 않는다.

113:2.2 (1242.5) 인종들의 진화에 있어서 운명의 수호자는 정복할
필요가 있는 순환계를 달성하는 바로 그 첫 번째 존재에게
배정된다. 유란시아에서 개인적인 수호자를 확보한 첫
번째 필사자는 란토웁이었는데, 그는 오래 전에 적색
인종의 현자(賢者)였다.

113:2.3 (1242.6) 천사들의 모든 배정은 자발적으로 나서는
세라핌천사들의 집단으로부터 만들어지며, 이러한
임명들은 쌍을 이루는 천사의 지위—세라핌천사의 체험과
기술 그리고 지혜에 비추어서—에 따라 그리고 인간적
필요성에 맞추어서 이루어진다. 오랜 기간 봉사한

세라핌천사들, 더 많은 체험을 가졌고 시험을 받은 유형들만이 운명 수호자들로 배정된다. 많은 수호자들은 비(非)조절자와 융합하는 계열들에 해당하는 그 세계들에서 가치 있는 많은 체험들을 획득하였다. 조절자들과 마찬가지로, 세라핌천사들은 한 번의 생애 동안 이 존재들을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되어 새로운 배정을 기다리게 된다. 유란시아에 있는 많은 수호자들은 다른 세계들에서 이미 이러한 실천적 체험을 겪었다.

113:2.4 (1243.1) 인간 존재들이 생존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들의 개인적인 또는 집단적인 수호자들은 같은 행성에서 비슷한 능력으로 반복하여 여러 번 봉사하게 된다. 세라핌천사들은 개별 세계들을 위하여 정서적 관심을 발전시키며 그들이 매우 가깝게 그리고 긴밀하게 연관해 온 특정한 인종들과 여러 유형의 필사 창조체들을 향하여 특별한 애정을 지닌다.

113:2.5 (1243.2) 천사들은 연관되는 그들의 인간을 위하여 늘 함께 하는 애정을 개발한다; 만일 너희가 세라핌천사들을 단지가시화할 수만 있어도, 너희는 그들에게 따뜻한 애정을

개발한다. 물질적 몸체가 벗겨지고 영 형태가 주어진다면, 너희는 개인성의 많은 속성들에서 천사들과 아주 가까울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대부분의 감정들을 공유하며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체험한다. 너희를 움직이는 감정 중에서 그들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유일한 것은, 유란시아의 평균 거주민의 정신적 일생에서 것처럼 커다란 부피를 차지하는 동물적 두려움의 유산이다. 천사들은 너희가 어째서, 너희의 높은 지적 힘이,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의 종교적 신앙이, 그렇게 두려움에 지배되도록 그렇게 끈질기게 허용하는지, 어째서 공포와 불안의 정신없는 공황에 철저하게 사기가 떨어지고 문란해지도록 그렇게 허용하는지, 실제로 납득하기 힘들어 한다.

113:2.6 (1243.3) 모든 세라핌천사들은 개별적인 이름을 갖지만, 세상 봉사에 대한 배정에서의 기록에는, 그들은 종종 자신들의 행성 번호에 따라서 등록된다. 우주 본부에서는 그들은 이름과 번호로 등록되어 있다. 지금 이 접촉하는 교통에서 사용된 인간 주체의 운명 수호자는 네바돈의 182,314번째 세라핌천사 총군의 37번 무리단, 6군단, 384단위연대, 4대대, 126중대, 17집단의 3번이다.

유란시아에 있는 이 세라핌천사와 이 인간 주체에게 주어진 현재 행성 배정 번호는 3,641,852번이다.

113:2.7 (1243.4) 개인적 수호자관계의 사명활동에서, 운명 수호자를 정하는 천사들의 배정에서, 세라핌천사들은 항상 자신들의 봉사로 말으려고 자원한다. 지금 이 방문행위가 이루어진 도시에서는 어떤 특정한 필사자가 최근에 운명예비무리단에 받아들여졌으며, 그러한 모든 인간들은 개인적으로 수호천사들이 따라 붙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100명 이상의 세라핌천사들이 배정받으려고 하였다. 행성 감독자는 보다 체험이 많은 12명의 개별존재들을 선택하였고 뒤이어서 그들은 이 인간 존재의 삶의 여정에 두루 그를 안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선택했던 세라핌천사를 배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동등하게 분별화된 어떤 세라핌천사 한 쌍을 선택하였다; 이 세라핌천사 쌍의 하나는 항상 근무 중일 것이다.

113:2.8 (1243.5) 세라핌천사의 임무는 끊임없는 것이 되겠지만, 천사의 쌍 중에 어느 한 쪽도 모든 봉사 임무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케루빔들과 마찬가지로, 세라핌천사들은 대개

쌍을 이루어 봉사하지만, 그들 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 연관-동료들과는 달리, 세라핌천사들은 때때로 홀로 일하기도 한다. 실천적으로, 인간 존재들과의 모든 접촉에서 그들은 개별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두 천사 모두가 요구되는 것은 오직 우주들의 보다 높은 순환회로들에서 교통과 봉사할 때이다.

113:2.9 (1243.6) 세라핌천사 한 쌍이 수호 임무의 배정을 받게 되면, 그들은 그 인간 존재의 여생동안 봉사한다. 존재에서의 보완자(두 천사들 중 하나)는 떠맡은 일의 기록자가 된다. 보완적인 이 세라핌천사들은 진화하는 세계들의 필사자들에 대한 기록하는 천사들이다. 이 기록들은 세라핌천사 수호자들과 항상 연관하는 케루빔 한 쌍(하나의 케루빔과 하나의 사노빔)에 의해 보관되지만, 이들 기록은 세라핌천사의 하나에 의해 항상 후원된다.

113:2.10 (1244.1) 휴식의 목적으로 그리고 우주 순환회로들의 생명 에너지 재충전의 목적으로, 그 수호자는 자신의 보완자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교체되어 휴식하였으며, 그가 없는 동안에는 연관-동료 케루빔이 기록자의 역할을 하였는데,

보완하는 세라핌천사가 비슷하게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그렇게 되었다.

제 3 장. 다른 영 영향에 대한 관계

113:3.1 (1244.2) 운명 수호자가 그녀의 필사자 주체를 위하여 행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진화하는 물질적 창조체의 마음과 혼 위에 내주하고 둘러싸고 그리고 부딪쳐오는 수많은 미(未)개인적 영 영향들의 개인적 조화-협동에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 존재는 개인성이고, 비(非)개인적 영과 전(前)개인적 실존개체들에게는 이처럼 고도로 물질적이고 단편적인 개인 마음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 수호하는 천사의 사명활동에서, 이 모든 영향들은 다소 통합되고, 진화하는 개인성의 확대하는 도덕적 본성으로 더욱 가깝게 깊이 이해하도록 만든다.

113:3.2 (1244.3) 더욱 특별하게, 이 세라핌천사 수호자는 물리통제자들과 보조 마음-영들의 권역에서부터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성령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파라다이스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전재(全在)하는 영 현존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영의 다양한 대리자와 영향들과

상관관계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무한한 영의 이들 광대한 사명활동들을 것처럼 통합시키고 더욱 개인적으로 만들고나서, 세라핌천사들은 공동 행위자의 집대성된 영향을 아버지와 아들의 영 현존들과 상관시키는 일을 착수한다.

113:3.3 (1244.4) 조절자는 아버지의 현존이다; 진리의 영은 아들들의 현존이다. 이러한 증여된 신성한 자질들은 수호 세라핌천사의 사명활동에 의해 인간의 영적 체험이라는 보다 낮은 차원들에서 통합되고 조화-협동된다. 섬기는 천사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를 필사 창조체들에 대한 그들의 사명활동 속에서 병합하는 재능을 부여받았다.

113:3.4 (1244.5) 그리고 이 글에서는, 세라핌천사 수호자들이 결국에는 육체적인 죽음과 모론시아 부활 사이의 기간 동안 생존된 필사자의 마음 원형틀들과 기억 공식들과 혼 실체들에 대한 개인적 보호관리자가 되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무한한 영의 사명활동하는 자녀들 이외에는 그 누구도 우주의 한 차원으로부터 더 높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이 위상 기간 동안에, 인간 창조체를

위하여 행하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없다. 너희가 너희의 마지막 이동하는 잠에 들어가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시간으로부터 영원으로 통과할 때도, 한 높은 초(超)천사가 마찬가지로 창조체 정체성의 보호관리자로서 그리고 개인적 고결한-순수성의 보증인으로서 그 이동에 동참한다.

113:3.5 (1244.6) 영적 차원 위에서, 세라핌천사들이 달리 보면 미(未)개인적이고 그리고 전(前)개인적인 많은 우주의 사명활동들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들은 조화-협동자들이다. 지적 차원 위에서, 그들은 마음과 모론시아의 상관자들이다; 그들은 통역자들이다. 그리고 물리적 차원 위에서, 그들은 주(主)물리통제자들과의 그들의 연락을 통하여 그리고 중도(中途) 창조체들의 협력하는 사명활동을 통하여 지상의 환경을 조종한다.

113:3.6 (1244.7) 이것이 수행(隨行)하는 세라핌천사에 대한 다양하고도 복잡한 기능에 관한 하나의 설명이다; 창조 되었으나 인간속성의 우주 차원보다 약간 높은, 것처럼 하급의 천사 개인성이 어떻게 해서 것처럼 어렵고도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실제로 알지

못하지만, 이 경이로운 사명활동은 최극존재,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우주들의 실재화하는 신(神)의 인식되지 않고 계시되지 않은 작용에 따라서 어떤 밝혀지지 않는 수단으로 촉진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다. 최극존재 안에서 그리고 그를 거치는 진보적 생존의 전체 영역에 두루, 세라핌천사들은 계속되는 필사자 진보에서 필수적인 한 부분이다.

제 4 장. 세라핌천사의 활동 영역

^{113:4.1 (1245.1)} 수호 세라핌천사들은, 필사자 마음을 기원시킨 동일한 근원, 창조 영으로부터 발생되었지만, 마음은 아니다. 세라핌천사들은 마음을 자극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인간 마음 안에 순환계를-만드는 결정들을 증진시키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한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조절자가 혼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작용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밖으로부터 안쪽으로, 인간 존재들의 사회적,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 환경을 통하여 일한다. 세라핌천사들은 우주 아버지의 매력인 신성한 조절자는 아니지만, 무한한 영의 사명활동에 있는 개인적 매개자로 기능한다.

113:4.2 (1245.2) 조절자의 인도에 따르면 그에 따라서, 필사 사람은 또한 세라핌천사의 안내도 쉽게 따르게 된다. 조절자는 사람의 영원한 본성의 본질이다; 세라핌천사는 사람의—이 일생에서 필사자 마음 안에서, 다음 일생에서 모론시아 혼 안에서—진화하는 본성의 선생이다. 맨션세계들에서 너희는 세라핌천사인 강사들을 인식하고 알아보게 되겠지만, 첫 번째 일생안에서는 사람들이 대개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다.

113:4.3 (1245.3) 세라핌천사는 인간 개인성의 발걸음을 새롭고도 진보적인 체험들의 길로 안내함으로써 사람들의 선생으로 기능한다. 세라핌천사의 안내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편안한 일생이 달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은 거의 없다. 너희를 인도하는 이러한 것을 따르면서, 너희는 도덕적 선택과 영적 진보의 험한 언덕들과 피할 수 없이 부딪칠 것이고, 만일 너희에게 용기가 있다면, 분명히 그것을 가로지르며 넘을 것이다.

113:4.4 (1245.4) 경배에 대한 충동은 대부분 보다 높은 마음 보조 기능들의 영 충동들 속에서 지원되는데, 조절자의 안내에 의해 강화된다. 그러나 하느님을 인식하는 필사자들에

의해 자주 체험되는, 기도하고자 하는 충동은 세라핌천사가 영향을 준 결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있다. 보호하는 세라핌천사는, 생존될 예정인 그러한 사람이 내주 하는 조절자의 현존에 대한 증진된 실현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신성한 현존의 영적인 임무와의 증진된 협동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종착점을 향하여 상승하는 인간의 조화우주 통찰력을 증강시킬 목적으로 필사자의 환경을 계속적으로 조종하고 있다.

113:4.5 (1245.5) 내주하는 조절자들과 주변에 있는 세라핌천사 사이에 외견상으로는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그들은 항상 완전한 조화와 정교한 화합 속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수호자들은 조절자들이 거의 활동하지 않을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그들의 사명활동은 어떤 면에서 이상하게 상관관계되어 있다. 그러한 숭고한 협동은 우연한 현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거의 아니다.

113:4.6 (1245.6) 수호 세라핌천사의 사명활동하는 개인성과, 내주하는 조절자의 하느님 현존과, 순환회로로 감싸는 성령의 활동, 그리고 진리의 영의 아들-의식은 모두 필사자 개인성 안에서 그리고 개인성에 대한 영적 사명활동의

의미 있는 합일 속으로 신성하게 상관관계되어 있다. 다른 근원들과 다른 차원들로부터 쏟아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천상(天上)의 이 영향들은 모두 최극존재의 감추어지고 진화하는 현존 속에서 집대성되어 있다.

제 5 장. 필사자에 대한 세라핌천사의 사명활동

113:5.1 (1245.7) 천사들은 인간 마음의 고결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들은 필사자들의 의지를 조종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내주 하는 조절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도 않는다. 운명의 수호자는 너희 개인성의 존엄성과 일치되는,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너희에게 영향을 끼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 천사들은 인간 의지의 자유로운 행동을 간섭하지 않는다. 천사들은 물론 다른 어떤 계층의 우주 개인성도, 인간의 선택하는 그러한 특권들을 축소하거나 단축할 힘이나 권한이 없다.

113:5.2 (1246.1) 천사들은 너희와 너무나도 가까이 있으며 너무나도 다정하게 너희를 돌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너희의 고집스러운 편협성과 완강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세라핌천사들은 물리적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물리적 몸체를

가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감성을 소유하고 있고, 영적 본성의 느낌과 정서들을 체험하며, 이것들은 어떤 면에서 인간의 감성과 비교될 수 있다.

113:5.3 (1246.2) 세라핌천사들은 너희의 직접적인 호소들과 전혀 무관하게 너희를 위해 행동한다; 그들은 그들의 상급자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리하여 그들은 너희에게 스쳐 지나가는 번덕스런 생각들 또는 변화무쌍한 기분과는 관계없이 기능한다. 이것이, 너희가 그들의 임무를 보다 쉽게 또는 보다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가 너희의 호소나 또는 너희의 기도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13:5.4 (1246.3) 육신의 삶에 있어서, 천사들의 지성이 필사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는 없다. 그들은 대군주나 지도자가 아니다; 단순히 수호자들에 불과하다. 세라핌천사들은 너희를 보호한다; 너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려고 추구하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경로를 계획해야만 하지만, 이 천사들은 그 때 너희가 선택한 그 경로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활동한다. 그들은 (대개) 인간 삶의 일상적인 관련사들 속에 독단적으로 끼어들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상급자들로부터 어떤 유별난 업적을 수행하도록 지도를 받아들였을 때에는, 이 수호자들이 이 명령들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발견하리라고 너희가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위급한 상황과 그 다음에는 대개 그들 상급자들의 직접적인 지도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적 각본의 장면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들은 여러 시대 동안 너희를 따라다니게 될 존재들이며,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미래 업무와 개인성 관계적-연합에 대한 소개를 받고 있는 중이다.

113:5.5 (1246.4) 세라핌천사들은 특별한 환경 속에서 인간 존재들에게 물질적으로 사명활동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들이 이러한 능력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들은 중도 창조체들과 물리통제자들의 협조를 얻어서 인간 존재들을 위해 광범위한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인류와 실재적인 접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발생사건들은 매우 특이한 것이다. 비록 인간 진화의 사슬 줄 안에서 생사에 관한 고리들에 대한 위험을 포함해서, 여러 계기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속에서

세라핌천사 수호자들이 그들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적절하게 활동을 해오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물질적 영역의 환경들은 세라핌천사의 활동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다.

제 6 장. 죽음 이후의 수호천사

^{113:6.1 (1246.5)} 자연적인 일생 동안 세라핌천사 사명활동의 여러 일들을 너희에게 이야기 하였으므로, 나는 그들의 인간 연관-동료의 필사자 분해가 일어날 시기에 운명의 수호자들의 행위에 관하여 너희에게 알려주고자 애써 보겠다. 너희가 죽게 되면, 떠나가는 조절자와 개인성의 실재성에 의해 대표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존의 정체성을 제외하고는, 너희의 기록들, 정체성 명세사항, 그리고 인간 혼—필사자 마음과 신성한 조절자의 사명활동에 의해 공동으로 진화된 것—의 모론시아 실존개체들은, 너희의 미래 실존에 관계되는 다른 모든 가치들, 너를 구성하는 모든 것, 진정한 너인 모든 것들과 함께, 운명 수호자에 의해 충실하게 보존된다.

^{113:6.2 (1246.6)} 인간 마음속에 있는 선도하는 빛, 세라핌천사가 조절자의 현존과 연관하는 영 발광체가 사라지자마자,

항상 따라다니던 천사는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무리단의 지휘하는 천사들에게 연속적으로 본인이 직접 보고 한다; 시간과 공간의 최종 모험여행을 위하여 정식으로 등록되어 진 이후에, 그러한 천사는 이 후보자의 세라핌천사 무리를 지휘하는 저녁별(또는 가브리엘의 다른 지휘부관)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세라핌천사의 행성 우두머리로부터 우주 상승에 대한 증명서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 조직 연대의 가장 높은 지휘관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순간, 그러한 운명 수호자는 첫 번째 맨션세계로 나아가며 그리고 육체 속에서 그녀의 보호를 받던 옛 피보호자가 의식화 되어지는 것을 그곳에서 기다린다.

^{113:6.3 (1247.1)} 인간 혼이 개인적인 천사의 배정을 받아들인 후에 생존에서 실패하는 경우에는, 따라다니던 그 세라핌천사는 지역우주의 본부들로 출두해야만 하는데, 전에 보고 하였던 대로 자신의 보완물에 대한 완벽한 기록들에 대해 그곳에서 증언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천사는 자신의 주인이 생존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사면되기 위하여 천사장들의 법정¹¹³에 출두한다; 그 다음에 그 천사는 그 세계들로 되돌아가서, 상승의

잠재성을 가진 다른 필사자에게 또는 세라핌천사
사명활동의 다른 어떤 분야에 다시 배정된다.

113:6.4 (1247.2) 그러나 천사들은 개인적 봉사와 집단적인
수호자신분의 봉사들 외에 많은 방법으로 진화적
창조체들을 돌본다. 그 주인들이 즉시 맨션세계들로 가지
않는 개인적 천사들은 섭리시대적 호출을 기다리면서
한가하게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 그들은 우주에 두루
수많은 돕는 임무들에 다시 배정된다.

113:6.5 (1247.3) 수호 세라핌천사는, 자리를 비운 조절자가 그
어떤 불멸하는 우주 존재의 정체성인 것과 마찬가지로,
필사 사람의 정지하고 있는 혼의 생존가치의 보호관리
신탁자이다. 이 둘이 맨션계에 있는 부활의 방에서 새로이
조합되는 모론시아 형태와 연대되어 공동으로 일할 때,
상승하는 필사자 개인성의 구성요소들의 재조립이
발생한다.

113:6.6 (1247.4) 조절자는 너희를 정체성 확인할 것이다; 수호
세라핌천사가 너희를 재(再)개인성구현 시킬 것이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땅에 있던 시절의 그 충실한
감시자에게 너희를 다시-내보일 것이다.

113:6.7 (1247.5)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의 행성 시대가 끝날 때, 필사자 성취에서의 보다 낮은 순환계들 안에 있는 저들이 모아질 때, 너희가 가진 기록에서 “그가 그의 천사들을 큰 소리와 함께 보내어 세상 이 끝으로부터 다른 끝까지 선택한 자들을 함께 모을 것이다”라고 말 한대로, 맨션 구체들에 있는 부활의 방에서 저들을 재조립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집단 수호자들이다.

113:6.8 (1247.6) 공의의 기법이 모든 비(非)생존 개인성을 대리하여 섭리시대의 점호에 개인적 또는 집단적 보호 천사들이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비(非)생존자들의 조절자는 되돌아오지 않으며, 점호가 있을 때, 세라핌천사들은 응답하지만, 조절자들은 아무 대답이 없다. 이것이 “부당한 자들의 부활”이며, 실제로는 창조체 실존의 중지를 공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공의의 점호는 언제나 자비의 점호, 잠자는 생존자들의 부활 바로 뒤에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들은 생존가치에 대한 최극의 그리고 전지(全知)의 심판관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관여되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한 판결의 문제들은 정말로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니다.

113:6.9 (1247.7) 집단 수호자들은 행성에서 여러 시대에 걸쳐 봉사할 수 있으며 그리고는 결국에는 수많은 잠자는 생존자들의 정지되어 있는 혼들의 보호관리자가 된다. 그들은 맨션세계들에서 부활 응답이 발생할 때까지 그렇게 한 주어진 체계 안에 있는, 여러 다른 세계에서 봉사할 수 있다.

113:6.10 (1247.8) 루시퍼 반란 시에 길을 벗어났던, 사타니아 체계에 있는 모든 개인적 그리고 집단수호자들은, 다수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란에 대한 마지막 판결이 있을 때까지 예루셈에 억류되어 있다. 우주 검열자들은 순종하지 않고 불충한 이 수호자들로부터 그들의 혼(魂) 신탁들의 모든 양상을 재량으로서 가져갔으며 이들 모론시아 실체들을 자원하는 2품천사의 보호관리에 안전하게 맡겨두었다.

제 7 장. 세라핌천사와 상승하는 생애

113:7.1 (1248.1) 맨션세계의 해안에서 처음으로 깨어나는 이것은 정말로 상승하는 필사자의 생애 안에서, 신(新)시대이다; 맨 처음으로, 이 세상에 있던 동안 너희를 오랫동안-사랑하였고 항상-현존하였던 천사 동행자들을

실재적으로 볼 것이다; 또한 그곳에서는, 이 세상에서 너희 마음속에 그토록 오랫동안 내주하였던 신성한 감시자의 정체성과 현존을 진정으로 의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체험은 영광스러운 자각을 구성한다; 그것이 실제 부활이다.

113:7.2 (1248.2) 모론시아 구체들에서는, 항상 따라 다니는 세라핌천사들(두 명이 있음)은 너희의 공개된 동행자들이다. 이 천사들은 과도기 세계들의 생애를 통하여 너희가 진보할 때 가능한 모든 면에서 모론시아 지위 그리고 영(靈) 지위의 획득을 위해 너희를 도우면서 동행할 뿐만 아니라, 맨션세계들에서 유지되는 진화적(進化的) 세라핌천사들을 위한 분교(分校)에서 연구함으로써 발전할 기회를 얻기도 한다.

113:7.3 (1248.3) 인간 종족은 비교적 단순한 유형의 천사 계층들보다 아주 약간 낮게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너희의 모론시아 삶의 첫 번째 배정은 너희가 육신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고 나서 뒤이어 개인성 의식(意識)을 달성하면, 그때 기다리고 있는 즉각적인 업무로서 세라핌천사에 대한 보좌관으로서 일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맨션세계들을 떠나기 전에, 모든 필사자들은 영구적인 세라핌천사 연관-동료들 또는 보호 천사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모론시아 구체들을 올라감에 따라서, 결국에는 생각 조절자와의 너희의 영원한 연합의 선포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이는 세라핌천사 수호자들이다. 동시에 그들은 너희의 개인성 정체성들이 시간의 세계의 육신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성숙한 모론시아 상태를 달성하게 되면, 그들은 예루셈에 두루 그리고 관련된 체계 세계들의 진보와 문화에 두루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그 후에 그들은 너희와 함께 에덴시아로 그리고 거기의 진보된 사회화달성의 70 구체들에 갈 것이며, 그리고 뒤이어 그들은 너희를 멜기세덱들에게로 안내하고 우주 본부 세계들의 장엄한 생애에 두루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멜기세덱들의 지혜와 문화를 다 배운 후에, 그들은 너희를 구원자별로 데려갈 것이며, 그곳에서 너희는 네바돈 모든 것의 주권자와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세라핌천사 안내자는 초우주의 소구역 그리고 대구역에 두루 그리고 유버사의 접수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여전히 따라갈 것인데, 너희가 긴

하보나 비행을 위하여 2품천사에 둘러싸일 때까지 너희와 함께 남아 있을 것이다.

113:7.5 (1248.5) 필사자 생애 동안 함께 하는 운명 보호 천사들 중 일부는 하보나에 두루 상승하는 순례자들의 경로를 따라간다. 다른 천사들은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필사자 연관-동료들에게 일시적으로 작별을 고하고, 그 후에는 이 필사자들이 중앙우주의 순환계들을 지나가는 동안 이들 운명의 수호자들은 천사별의 순환계들을 성취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필사자 연관-동료들이 새로운 영원 체험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변환 숙면기로부터 깨어날 때 파라다이스의 기슭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상승하는 그러한 세라핌천사들은 나중에 최종자 무리단에서 그리고 완성의 세라핌천사 무리단에서 다양한 봉사들을 하게 된다.

113:7.6 (1248.6) 사람과 천사는 영원한 봉사에 있어서 재(再)연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라핌천사 배정이 그들과 함께 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세라핌천사들이 진화 세계들에서 그 전에 자기들이 보호하였던 그들, 시간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들과 항상

교통을 나눈다. 인간이 기원된 영역에서의 친밀한 관계적-연합과 애정 어린 결속은 결코 완벽하게 잊히지 않으며 끊어지지도 않는다. 영원한 시대들 속에서 사람들과 천사들은 시간의 생애 속에서 활동할 때 신성한 임무에 협동하게 될 것이다.

113:7.7 (1249.1) 세라핌천사들에게 있어서, 파라다이스 신(神)들에게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화적 기원을 갖는 혼을 파라다이스의 입구까지 성공적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높게 상급을 받는 세라핌천사의 임무는 운명 보호 천사의 직책이다.

113:7.8 (1249.2) 오직 운명 수호천사들만이 1차, 즉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으로 소집된다, 그리고 그러한 쌍들은 하나로-있는 정체성의 최극 모험에 참여해 왔다; 그 두 존재들은 최종자 무리단으로 받아들여지기 전에 천사별에서 영적인 쌍방-통일을 성취해 왔다. 이러한 체험에서 그 두 천사 본성들은 모든 우주적 기능들에 있어서 너무나도 보완적이고, 궁극적 영의 둘이-하나 됨을 성취하는데,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비(非)-조절자 단편을 받음과 그것과의 융합을 위한 새로운 수용력 안에서 반향한다. 그리하여 시간

속에서 너희의 사랑하는 세라핌천사 동반자들 중 일부는
영원 속에서도 너희의 최종자 동반자들, 최극자의 자녀들
그리고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완전하게 된 아들이 된다.

113:7.9 (1249.3) [유란시아에 주둔한 세라핌천사 우두머리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114 편 세라핌천사의 행성 정부

114:0.1 (1250.1) 지고자들은 많은 천상의 무리들과 매개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왕국들을 통치하지만 주로
세라핌천사들의 사명활동을 통해서 통치한다.

114:0.2 (1250.2) 오늘 정오에 출석한 유란시아에 있는 행성
천사들과 수호천사들 그리고 여타 천사들의 숫자는
501,234,619 쌍의 세라핌천사들이다. 나의 명령을
따르도록 배정된 세라핌천사는 200개의 무리단이며 이는
597,196,800 쌍—개별 숫자로는 1,194,393,600 명이다.
아무튼, 등록된 개별 존재들의 숫자는
1,002,469,238명이다; 그러므로 191,924,362명의 천사들이
운송과 메신저 그리고 죽은 자의 임무에 종사하기 위해 이
세계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 (유란시아에는

세라핌천사들과 거의 동일한 숫자의 케루빔들이 있으며, 그들도 비슷하게 조직되어 있다.)

114:0.3 (1250.3) 세라핌천사들과 그들을 보조하는 케루빔들은 행성, 특별히 반란 때문에 고립되어 온 세계들의 초인간 정부의 세부 사항들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천사들은 중도자들에 의해 능숙하게 보조를 받으면서, 거주 총독과 그의 모든 연관-동료들 그리고 종속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실재적인 초물질적 사명활동자로서 유란시아에서 기능하고 있다. 하나의 등급으로서의 세라핌천사들은 개인적인 보호 역할과 집단적인 보호 역할 이외의 다른 많은 임무들에 배정되어 있다.

114:0.4 (1250.4) 체계와 별자리 그리고 우주 통치자들로부터의 특유하고도 효력적인 감독이 유란시아에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행성 정부는 사타니아 체계, 그리고 심지어는 네바돈 전체에 있는 어떤 다른 세계의 그것과 같지 않다. 너희의 감독 계획에 있어서의 이러한 독특성은 특이한 여러 환경들 때문에 기인된다:

114:0.5 (1250.5) 1. 유란시아의 생명 변형 지위.

114:0.6 (1250.6) 2. 루시퍼 반란의 위급성.

114:0.7 (1250.7) 3. 아담의-불이행으로 인한 혼란.

114:0.8 (1250.8) 4. 유란시아가 우주 주권자의 증여 세계들 중의 하나라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불규칙성들. 네바돈의 미가엘이 유란시아의 행성영주라는 점.

114:0.9 (1250.9) 5. 24명의 행성 지도자들의 특별한 기능.

114:0.10 (1250.10) 6. 천사장의 순환회로의 행성 위에서의 위치.

114:0.11 (1250.11) 7. 한 때 육신화 하였던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아주 최근에 대관 행성영주로서 지명된 것.

제 1 장. 유란시아의 주권

114:1.1 (1250.12) 유란시아에 대한 기원적 주권은 사타니아 체계의 주권자에 의해 행사되었다. 그것이 처음에는 그에 의해 멜기세덱들과 생명운반자들의 연관 위원회에 위임되었으며, 이 집단은 정식으로 임명된 행성영주가 도착할 때까지 활동하였다. 칼리가스티아 영주가 실패한 후, 루시퍼 반란이 일어났을 때, 유란시아는 미가엘이 육신 속의 증여를 완성 할 때, 연합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그가

유란시아의 행성영주로 선포될 때까지 지역우주 그리고 그것의 관리-행정적인 부서들과 확실하고도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었다. 확실성과 본질에 있어서는 그러한 선포가 너희 세계의 지위를 언제까지나 정착시켰지만, 실천적인 면에서는 주권자 창조자 아들은 유란시아 정부를 비롯하여 그 체계에 있는 다른 모든 격리된 행성들에서 그를 대표하는 권한과 함께 24명의 이전(以前) 유란시아인 들로 구성된 예루셈 위원회 수립을 제외하고는 그 행성의 개인적 통치에 대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이 협의회에 속한 한 명은 현재 거주총독으로서 유란시아에 항상 거주하고 있다.

114:1.2 (1251.1) 미가엘을 대신하여 행성영주로 활동하는 대리권이 최근에 마키벤타 멜기세덱에게 부여되어 왔지만, 지역우주의 이 아들은 거주하는 총독들의 이어지는 관리-행정의 현재 행성 체계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왔다.

114:1.3 (1251.2) 만약에 대리 행성영주가 그의 명의상의 책임들을 지기 위하여 도착하지 않았다면 현재 섭리시대 동안 유란시아의 정부 속에 어떤 현저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가까운 장래의 어떤 시기에 24명의 조연자들 중에서 한 명을 유란시아에 보내어 총독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계획이 유란시아의 주권에 대한 대리자 위임 주권을 가진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공식적인 도착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연관-동료들은 확신하고 있다. 행성영주로 활동하면서 그는 분명히 루시퍼 반란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아마도 빛과 생명 속에 행성이 정착하는 먼 훗날에 이르기까지 그 행성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다.

114:1.4 (1251.3) 어떤 이들은 현재 섭리시대가 끝나기 전에는 마키벤타가 유란시아 관련사들에 대해 개인적인 지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어떤 이들은 미가엘이 아직 육신 속에 계셨을 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가 언젠가 유란시아에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대리 영주가 그렇게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본인을 포함하여, 멜기세덱이 어느 날 또는 어느 시각에든지 나타나리라고 고대하고 있다.

제 2 장. 행성 감독자 위원회

114:2.1 (1251.4) 너희가 사는 세상에 미가엘이 증여된 때 이후로, 유란시아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한 때 유란시아인이었던 24명으로 구성된 예루셈에 있는 특별 집단에게 위탁되어 왔다. 이 위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분별된-자격이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임명된 그들 모두가 사타니아 체계에서 최극자의 확대되는 주권에 공헌하고 있음을 보아 왔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모두 유란시아에서 활동하였을 때 실제적인 영도자들이었으며, (마키벤타 멜기세덱을 제외하고) 영도자관계의 이 본질특성들은 맨션세계의 체험에 의해 더욱 확대되었고 예루셈 시민이 되기 위한 훈련에 의해 증강되었다. 회원들은 라나휘지의 내각에 의해 24명에게 지명되었고,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에 의해 재청되었으며, 예루셈의 배정된 파수자에 의해 승인되었고, 미가엘의 명령에 따라 구원자별의 가브리엘에 의해 임명되었다. 임시적으로 지정된 그들은 특별한 감독자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의 영원한 회원들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충만하게 기능을 발휘한다.

114:2.2 (1251.5) 행성 지도자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미가엘이 그의 마지막 증여를 이 세상에서 체험하였다는 사실의

결과로 나타난 이 세상에서의 그 활동들에 대한 감독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다. 그들은 어떤 찬란한 저녁별, 예수의 필사자 증여에 두루 그와 함께 하였던 그 동일한 존재의 연락 활동들에 의해, 미가엘과 계속 가까이 그리고 즉각적인 연락이 유지되고 있다.

114:2.3 (1252.1) 현재는 요한, 너희에게는 "세례자"라고 알려진 그가 예루셈에서 회의가 열릴 때 이 협의회 의장이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상황에서의 이 협의회 의장은 사타니아의 배정된 파수자인데, 그는 구원자별에 있는 연합-동료 검열자와 오르본톤의 최극집행자의 직접적이면서도 개인적인 대표자다.

114:2.4 (1252.2) 전에 유란시아인 들이었던 바로 이 위원회의 회원들은 또한 그 체계 안에 있는 반란으로-고립된 36개의 다른 세계들에 대해 자문하는 감독자로도 활동한다; 그들은 놀라시아덱의 별자리 아버지들의 전반적-통제 아래에 아직도 다소 남아 있는 이 행성들의 관련사들과 긴밀하고도 동정심 어린 접촉을 하면서, 체계 주권자인 라나휘지를 따르는 매우 가치 있는 봉사를 수행한다.

24명의 이 조연자들은 격리된 행성들 각각에 개별적으로 자주 여행을 하는데, 특별히 유란시아에 자주 간다.

114:2.5 (1252.3) 고립된 다른 세계들 각각은 한 때 그곳에 거주하였던 저들로 구성된 비슷하면서도 다양한 크기의 위원회들에 의해 충고를 받지만, 다른 이 위원회들은 24명의 유란시아 집단에 종속되어 있다. 최근 위원회의 회원들은 그래서 사타니아 안에 있는 각각의 격리된 세계에서 인간 진보의 모든 위상에 활발하게 관심을 쏟으며, 한편으로는 그들은 유란시아의 필사 종족들의 복지와 진보에 특별하게 그리고 각별하게 관심을 두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유란시아를 제외한 다른 어떤 행성들의 관련사들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곳에서도 그들의 권한은 필사자의 생존과 관계되는 특정권역을 제외하고는 완벽하지가 않다.

114:2.6 (1252.4) 24명의 이 유란시아 조연자들이 우주 활동들의 정규 프로그램에서 분리된 채로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의 현재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한 세대의 끝, 마키벤타 멜기세덱에 의한 충분한 권한의

인수, 루시퍼 반란에 대한 최종 판결, 또는 미가엘이 마지막으로 증여되었던 이 세상에 그가 재림하는 것과 같은, 어떤 행성 변화가 발생할 때까지 그들의 현재 능력 속에서 계속 봉사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현재 유란시아에 거주총독은 사타니아 체계가 별자리 순환회로들에게로 환원되는 그 순간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파라다이스 상승을 위하여 거의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갖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다른 견해들 역시 현재적이다.

제 3 장. 거주 총독

114:3.1 (1252.5) 유란시아 시간으로 매 100년마다, 24명의 행성 감독자들로 구성된 예루셈 단체는 그들 중에서 한 명을 너희 세계에 머물도록 지정하여 그들의 집행 대리자, 거주총독으로 활동하게 한다. 이 글들이 준비되던 시기 동안에 이 집행 관리자가 바뀌었는데, 19번째를 뒤이어서 20번째가 그렇게 봉사하게 되었다. 현재의 행성 감독자의 이름은 너희에게 알려질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다만 필사 사람이 자신의 비범한 동료들과 초인간적 우월성을 갖는 사람들을 숭배하려는 그리고 심지어는 신(神)화시키려는 경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이다.

114:3.2 (1252.6) 거주총독은 24명의 예루셈 조연자들의 대표자 역할 이외에는 세상 관련자들의 운영에 실재적인 개인적 권한을 전혀 갖지 않는다. 그는 초인간적 관리-행정의 조화-협동자로 활동하며, 유란시아에서 활약하는 천상(天上)의 존재들의 훌륭한 우두머리이며 널리 알려진 지도자이다. 천사 무리들의 모든 계층들은 그를 그들의 조화-협동 지도자로 간주하는 반면, 연합된 중도자들은 첫 번째인 1-2-3이 24 조연자들 중의 하나가 되기 위하여 떠난 이후로는 이어지는 통치자들 대장을 실제로 자신들의 행성 아버지들이라고 간주한다.

114:3.3 (1253.1) 그 총독이 비록 그 행성에서 실재적이고 개인적인 권한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관계된 모든 개인성들에 의해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수많은 판정과 결정들을 매일같이 하달한다. 그는 전문적인 통치자라기보다는 아버지 같은 충고자에 훨씬 더 가깝다. 어떤 면에서 그는 행성영주인 것처럼 활동하지만, 그의 관리-행정은 물질아들들의 것과 더욱 유사하다.

114:3.4 (1253.2) 유란시아 정부는 되돌아오는 총독이 행성영주들로 구성된 체계 주권자 내각의 임시적인

회원의 자리에 앉는 배열에 따라서 예루셈 협의회 안에 나타내진다. 마키벤타가 대리 영주로 지정되었을 때, 사타니아의 행성영주들의 협의회에서 그가 즉각적으로 자기 위치를 차지하게 되리라고 기대하였지만, 그것과는 달리 그는 이러한 방향에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114:3.5 (1253.3) 유란시아의 초물질적 정부는 그 지역우주의 보다 높은 기구들과 매우 가까운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거주총독은 예루셈뿐만 아니라 구원자별을 대표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미가엘과 가브리엘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24명 조연자들을 위해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루셈 시민이 되면, 행성 통치자는 체계 주권자의 대변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별자리 당국은 에덴시아 관찰자인 보론다덱 아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대변된다.

제 4 장. 지고자(至高者) 관찰자

114:4.1 (1253.4) 유란시아의 주권은 그 행성의 반란 직후에 놀라시아덱의 정부에 의해 행성 권한이 한 때 독단적으로 몰수됨으로써 더욱 어렵게 되었다. 유란시아에는 여전히 에덴시아의 지고자를 위한 관찰자, 미가엘에 의한 직접

활동이 없을 시, 행성주권의 수탁자인, 보론다텍 아들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의 지고자 관찰자(그리고 가끔의 대리자)는 유란시아에서 그렇게 봉사하는 23번째이다.

114:4.2 (1253.5) 루시퍼 반란 시에 그들에 대한 판결이 동결된 채로 아직도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의 통제 하에 있는 특정한 부류의 행성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의 권한은 놀라시아텍 관찰자인 보론다텍 아들에 의해 행사되는데, 그는 행성 감독자들과 매우 긴밀한 자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종족위원들이 유란시아에서 매우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그들의 다양한 집단 우두머리들은, 그들의 자문 감독자로 활동하는, 거주하는 보론다텍 관찰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소속되어 있다.

114:4.3 (1253.6) 위기의 때에 그 정부의 실재적이고 주권을 가진 우두머리는, 순전히 영적인 어떤 문제들의 경우는 제외하고, 현재 관찰 임무에 종사하고 있는 에덴시아의 이 보론다텍 아들일 것이다. (배타적으로 영적인 이 들 문제 그리고 순전히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최종 권한이 최근에 유란시아에 설립된 그 계층의 분야별

본부에 배속된 명령하는 천사장들에게 부여된 것처럼 보인다.)

114:4.4 (1253.7) 지고자 관찰자는 행성의 중대한 위기 때에 그의 사려 깊은 분별력에 따라 그 행성 정부를 압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유란시아의 역사상 이것이 33번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한 때에 지고자 관찰자는 지고자 대리통치자로 활동하는데, 천사장들의 분야별 조직만을 제외하고 그 행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명활동자와 행정-관리자에게 도전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한다.

114:4.5 (1253.8) 보론다덱 대리 통치는 반란으로-고립된 행성들에게 색다른 것이 못되는데, 왜냐하면 지고자들이 사람들의 왕국에 생기는 관련사들에서 별자리 통치자들의 우월한 지혜를 개입시키면서, 언제든지 거주 세계들의 관련사들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5 장. 행성 정부

114:5.1 (1254.1) 유란시아의 실재 관리-행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분리된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와 같은 우주 조직의 계통들을 따르는 공식적인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24 조언자들은 행성 정부의 입법부에 가장 가깝다. 총독은, 거부권을 가진 지고자 관찰자와 함께, 잠정적이면서 자문 역할의 우두머리 집행자다. 그리고 행성에서 작용하는 어떤 강제적인 사법권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오직 화해위원회들이 있을 뿐이다.

114:5.2 (1254.2) 세라핌천사들과 중도자들과 관계된 문제들 대부분은 상호 동의에 의해 총독이 결정한다. 그러나 24 조언자들이 지시를 하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통치는 모두 화해 위원회들에게, 행성 기능을 구성하는 지방 권한자들에게, 또는 심지어 사타니아의 체계 주권자에게 하는 호소에 종속된다.

114:5.3 (1254.3) 행성영주의 유형 참모진과 아담의 아들 그리고 딸의 물질적인 통치체제의 부재는 세라핌천사들의 특별한 사명활동에 의해서 그리고 중도 창조체들의 비범한 봉사 임무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보상된다. 행성영주의 부재는 천사장들과 지고자 관찰자 그리고 총독의 삼원적 현존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보상된다.

114:5.4 (1254.4) 비교적 느슨하게 조직되고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관리-운영되는 이 행성 정부는 기대이상으로 효과적인데, 그것은 천사장들과 그들의 항상 준비된 순환회로의 시간 절약 보조 때문이며, 그것은 행성의 비상사태들과 관리-행정적 어려움들이 있을 때 매우 자주 활용된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행성이 놀라시아덱 순환회로에서 아직도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지만, 위험이 닥치게 되면 이 불리한 조건은 이제 천사장들의 순환회로의 활용을 통하여 회피될 수 있다. 물론, 1,900년 전에 진리의 영이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진 이후로는 행성의 고립이 개별 필사자들에게 거의 관계되지 않는다.

114:5.5 (1254.5) 유란시아에서 각각의 행정-관리적 하루는 자문회의와 함께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총독, 천사장들의 행성 우두머리, 지고자 관찰자, 감독하는 초(超)천사, 거주하는 생명운반자들의 우두머리, 그리고 그 우주의 높은 아들들 중에서 또는 그 행성에 머물게 될 기회가 있는 특정한 학생 방문자들 중에서 초대된 손님들이 참여한다.

114:5.6 (1254.6) 총독의 직접적인 행정-관리적 내각은 12 세라핌천사들, 행성 진보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초인간적 지도자들로 활동하는 특별한 천사들로 구성된 12 집단들의 대리 우두머리들로 구성된다.

제 6 장. 행성 감독의 주(主) 세라핌천사

114:6.1 (1254.7) 진리의 영이 부어짐과 때를 맞추어, 첫 총독이 유란시아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열 두 무리단의 특별 세라핌천사들, 천사별 졸업자들을 대동하였는데. 이들은 즉각적으로 어떤 특별한 행성 봉사에 배정되었다. 이들 고양된 천사들은 행성감독 주(主) 세라핌천사로 알려져 있으며, 행성의 지고자 관찰자의 전반적-통제와는 별도로, 거주총독의 직속적인 지도 밑에 속해있다.

114:6.2 (1255.1) 열 두 집단의 이 천사들은 거주총독의 전반적인 감독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동시에, 열 두 명의 세라핌천사 협의회, 각 집단의 대리 대장들에 의해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다. 또한 이 협의회는 거주총독의 자발적인 내각으로 봉사하기도 한다.

114:6.3 (1255.2) 세라핌천사의 행성 우두머리로서, 나는 세라핌천사 우두머리들로 구성된 이 협의회를 통솔하며, 또한 나는 칼리가스티아 탈퇴가 있었을 때 불이행을 행했던 천사 무리들의 우두머리로 한 때 봉사하였던 자의

후임자로서 유란시아에 봉사하는 1차 계층의 자원자 초(超)천사다.

114:6.4 (1255.3) 행성감독 주(主) 세라핌천사의 열 두 무리들은 유란시아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

114:6.5 (1255.4) 1. 신기원(新紀元)의 천사. 이들은 현재 시대의 천사들, 섭리시대적 집단이다. 이 천상의 사명활동자들은 그들이 발생하는 그 시대의 모자이크 무늬에 맞도록 계획된 대로 각 세대의 관련사들에 대한 감시와 지도를 하도록 위탁되어 있다. 유란시아에서 봉사하는 신기원의 천사들로 구성된 현재의 무리는 현재의 섭리시대 동안에 행성에 배정된 세 번째 집단이다.

114:6.6 (1255.5) 2. 진보의 천사. 이 세라핌천사들은 계속되는 사회적 시대들의 진화 과정을 일으키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들은 진화하는 창조체들의 선천적인 발전적 경향의 발달을 육성한다; 반드시 존재되어야만 할 것들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한다. 현재 임무를 맡은 집단은 행성에 배정된 두 번째 집단이다.

114:6.7 (1255.6)

3. 종교의 수호자. 이들은 “교회들의 천사들”로서, 현재 존재하고 지금까지 존재해 온 것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도덕적 가치들이 한 신(新)시대로부터 다음 신(新)시대로 안전하게 전달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여 온 이상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들은 진보의 천사들이, 옛날의 그리고 지나가는 형태들에 대한 불멸의 가치들을 새것으로 이 시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환하기 위하여 항상 애쓰고 그래서 생각과 행위의 안정된 형태들이 감소되는 것을 패퇴시키는 이들이다. 이 천사들이 영적 형태를 위하여 싸우지만, 전문 종교인들의 무의미한 논쟁적 파벌과 극단적 교파주의의 근원이 아니다. 현재 유란시아에서 활동하는 무리는 그렇게 봉사하는 다섯 번째이다.

114:6.8 (1255.7)

4. 국가 일생의 천사. 이들은 “나팔을 부는 천사들”, 유란시아 국가 생존에 대한 정치적 행위를 지도하는 존재들이다. 현재 국제적 관계들에 대한 전반적-통제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집단은 그 행성에서 봉사하는 네 번째 무리이다. “지고자들이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통치하는 것”은 특별히 이 세라핌천사 분과(分課)의 사명활동을 통해서이다.

114:6.9 (1255.8) 5. 종족의 천사. 그들이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상황과 종교적인 집단화에 상관없이, 시간의 진화적 종족들의 보존을 위하여 일하는 존재들. 유란시아에는 현대의 민족들 속으로 혼합되고 병합되어 온 아홉 개의 인간 인간 종족들이 남아 있다. 이 세라핌천사들은 종족위원들의 사명활동에 매우 가깝게 관여되어 있으며, 현재 유란시아에 있는 그 집단은 오순절 직후에 그 행성에 배정된 최초의 무리이다.

114:6.10 (1256.9) 6. 미래의 천사. 이들은 새로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섭리시대의 보다 나은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미래 시대와 계획을 예측한다; 그들은 계속되는 시대들의 고안건축가들이다. 현재 이 행성에 있는 집단은 현재의 섭리시대의 시초(始初)부터 그렇게 활동해 왔다.

114:6.11 (1256.1) 7. 깨우침의 천사. 유란시아는 현재 항상 교육을 육성하도록 전념된 세라핌천사의 세 번째 무리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 천사들은 개별존재들, 가정들, 집단들, 학교들, 공동체들, 국가들, 그리고 전체 인종들과 관계되는 정신적 그리고 도덕적 훈련에 종사하고 있다.

114:6.12 (1256.2) 8. 건강의 천사. 이들은 질병 예방과 건강 추진에 전념하는 저들 필사자 대리자들을 돕도록 배정된 세라핌천사 사명활동자들이다. 현재의 무리는 이 섭리시대 동안에 봉사하는 여섯 번째 집단이다.

114:6.13 (1256.3) 9. 가정(家庭) 세라핌천사. 유란시아는 현재 가정의 보호와 발전, 인간 문명의 기본 제도에 전념된 다섯 번째 집단의 천사 사명활동자들의 봉사를 받고 있다.

114:6.14 (1256.4) 10. 산업의 천사. 이 세라핌천사 집단은 산업 발달 육성과 유란시아 민족들 속에서의 경제적 상황 증진에 관여한다. 이 무리는 미가엘의 증여 이후로 일곱 번 바뀌었다.

114:6.15 (1256.5) 11. 기분전환의 천사. 이들은 오락과 유머 그리고 휴식을 증진시키는 세라핌천사들이다. 그들은 사람의 레크리에이션에 의한 기분전환을 향상시키고 그리하여 인간의 여가 활용을 보다 유익하게 증진시키려고 항상 노력한다. 현재의 무리는 유란시아에서 사명활동하는 세 번째의 계층이다.

114:6.16 (1256.6) 12. 초인간 사명활동의 천사. 이들은 천사들의 천사들이며, 일시적이거나 또는 영구적이거나, 이 행성에 있는 다른 모든 초인간 생명들의 사명활동에 배정된 그러한 세라핌천사들이다. 이 무리는 현재의 섭리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봉사해 왔다.

114:6.17 (1256.7) 주(主) 세라핌천사들의 이들 집단이 행성 정책 또는 진행에 대해 의견이 달랐을 때, 그들의 차이점들은 대개 총독에 의해 안정되지만, 그의 모든 판정들은 불일치 속에 포함된 문제점들의 본질과 중대함에 따라 이루어진다.

114:6.18 (1256.8) 이 천사 집단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배정 범위에 대한 직접적 또는 독단적 통제를 행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개별적인 활동 권역에 있어서의 관련사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지만, 그들은 행성의 환경을 조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며 그들이 소속된 인간 활동 영역에 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환경들을 결합시킨다.

114:6.19 (1256.9) 행성감독 주(主) 세라핌천사는 그들의 임무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많은 대리자들을 활용한다. 그들은

관념작용의 교환정리소, 마음을 초점화구현 시키는 존재들, 그리고 구체적 투사 후원자들로 활동한다. 새롭고도 더 높은 개념들은 인간 마음들 속에 주입할 수 없는 반면, 그들은 이미 인간 마음속에 나타난 어떤 높은 이상이 강렬하게 나타나도록 기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14:6.20 (1256.10) 그러나 이러한 많은 긍정적 활동의 의미들 이외에, 세라핌천사 우두머리는 운명예비무리단의 동원과 훈련 그리고 유지를 통하여 극히 중대한 위험에 맞서는 행성 진보를 보장한다. 이 예비자들의 주요 기능은 진화 과정의 붕괴를 막는 것이다; 그들은 천상의 무리들이 뜻밖의 일에 대비하여 준비한 조치들이다; 재난을 확실하게 방지하는 존재들이다.

제 7 장. 운명의 예비무리단

114:7.1 (1257.1) 운명예비무리단은 세상 관련사에서의 초인간적 관리-행정의 특별한 봉사에 받아들여진 살아있는 남자들과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무리는, 진화하는 세상들에서 시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지혜의 사명활동의 수행을 돕기 위하여 영역의 영 지도자들에 의해 선택되는 각 세대의 남자들과 여자들로

이루어진다. 그들이 그러한 책임들을 맡을만한 능력이 있고 신뢰가치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이러한 필사자 의지 창조체들의 연락 활용기능을 시작하는 것은, 상승 계획에서의 관련사들의 수행에서 일반적인 실천 관례이다. 따라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충분한 정신적 수용력과 적절한 도덕적 지위 그리고 필수적인 영성을 갖고 현세적인 활동 무대에 나타나자마자, 그들은 인간 연락자, 필사자 보좌관들로서 행성 개인성들로 구성된 적절한 천상의 집단에 즉시 배정된다.

114:7.2 (1257.2) 인간 존재들이 행성 운명의 보호자들로 선택될 때, 이 세상의 관리행정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그 계획들 속에서 그들이 중추적인 개별존재들이 될 때, 그 때에는 세라핌천사의 행성 우두머리는 그들이 세라핌천사 무리에 임시적으로 배속되도록 허락하고 개인적 운명 보호 천사들로 하여금 이 필사자 예비자들과 함께 봉사하도록 지명한다. 모든 예비자들은 자아-의식 조절자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은 지적인 공로와 영적인 재능의 보다 높은 조화우주 순환계들 속에서 활동한다.

114:7.3 (1257.3) 거주 세계들에서 운명예비무리단으로 봉사하도록 영역의 필사자가 선택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14:7.4 (1257.4) 1. 세상 관련사들의 다양한 활동에서의 처리행위에서 수많은 가능한 비상 임무들을 위해 은밀하게 연습되어지는 특별한 수용능력.

114:7.5 (1257.5) 2. 인간의 인정받음이나 보상과는 상관없이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과 함께, 어떤 특별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적, 또는 다른 대의명분에 전심으로 전념함.

114:7.6 (1257.6) 3. 행성의 어려움들에 대처하고 절박한 세계적(世界的) 비상 상황에 대처함에서 비범한 융통성과 유란시아-이전(以前)의 유망한 체험을 가진 생각 조절자의 소유.

114:7.7 (1257.7) 행성에서 천상의 봉사를 수행하는 각각의 부서는 운명 지위를 가진 이들 필사자들의 연락 무리단으로 불리고 있다. 사람이 거주하는 보통의 세계는 70개의 분리된 운명의 무리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계의

관련사에 대한 현재의 초인간적 처리행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유란시아에는 12개의 운명예비무리단이 있는데, 세라핌천사의 감독을 받는 행성 집단마다 하나씩 있다.

114:7.8 (1257.8) 유란시아의 운명 예비자들로 구성된 12개의 집단들은 가능성 있는 행성 비상사태들 속에서 행동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지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중대한 상태들을 위하여 연습해 온 구체의 필사자 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관된 이 부대들은 현재 96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작은 부대는 41명이고 가장 큰 것은 172명이다. 그보다 적은 숫자의 접촉 개인성들을 제외하고, 독특한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특별한 행성 위기가 있을 때 활동할 가능성을 위하여 자신들이 준비되고 있음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이 필사자 예비자들은 그들이 각각 배속되어 있는 그 부대들에 의해 선택되며, 생각 조절자와 세라핌천사 수호자 사명활동의 병합된 기법에 의해 깊은 마음속에서 마찬가지로 훈련되고 숙달된다. 수많은 다른 천상의 개인성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무의식적 훈련에

참여하며, 이러한 모든 특별한 준비에 있어서 중도자들은 귀중하고도 필수불가결한 봉사들을 수행한다.

114:7.9 (1258.1) 많은 세계들에서는 보다 잘 적응된 2차 중도(中途) 창조체들이, 어떤 유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필사자의 생각 조절자와, 생각 조절자가 내주하고 있는 마음에 대한 능숙한 침투를 통하여 두루, 다양한 정도로 접촉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계시들이 유란시아에서 영어로 물질화되었던 것은 조화우주 조절의 바로 그러한 뜻밖의 병합에 의한 것이었다.) 진화 세계들의 그러한 잠재적 접촉 필사자들은 수많은 예비 무리단들 안에서 동원되며, 영적 문명이 증진되고 지고자들이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앞을-내다보는 이들 작은 집단의 개인성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이들 운명예비무리단에 소속된 남자와 여자들은 중도 창조체들의 간섭하는 사명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조절자들과 다양한 정도로 접촉한다; 그러나 바로 이들 필사자들은 살아있는 진리의 빛의 소멸 또는 진화적 문화의 몰락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이 예비 개인성들이 활동하는 드문 사회적 비상사태와 영적(靈的)으로 위급한 상황 이외에는, 그들의 동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유란시아에서는 이 운명 예비자들이 인간 역사의 장을 드물게 장식해 왔다.

114:7.10 (1258.2) 그 예비자들은 기본적인 행성 정보의 보호자로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 예비자가 죽음에 임박하였을 경우, 특정한 삶에 관한 자료들이 죽어 가는 그 예비자의 마음으로부터 보다 젊은 후계자에게로 전환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것은 두 생각 조절자들의 연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조절자들은 이 예비부대들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다른 방법으로 확실하게 활동한다.

114:7.11 (1258.3) 유란시아에서 그 운명 예비 무리는 영구적인 우두머리를 갖지는 않지만, 그것의 통치 조직을 구성하는 그 자체의 영구적인 협의회들을 갖고 있다. 이것들 중에는 사법 협의회, 역사 협의회, 정치적 주권에 대한 협의회,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이 포용되어 있다. 때로는 그 무리 조직에 따라서, 전체 예비 무리의 명목상의 (필사자) 수장(首長)들이 특별한 활동을 위해 이 영구적인 협의회들에 의해서 임명되어 왔다. 그러한 예비자 우두머리들의 재직 기간은 대개 어떤 명확한 임무가 곧

성취될 때까지로 제한되면서, 약간의 시간 동안으로 국한된다.

114:7.12 (1258.4) 유란시아 예비 무리는 아담-사람들과 안드-사람들의 시대에 가장 많은 숫자를 보유하였으며, 보라색 혈통이 희석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줄어들었고 오순절 무렵에는 낮은 상태에 도달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예비 무리 회원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해 왔다.

114:7.13 (1258.5) (유란시아에서 우주-의식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된 그 조화우주 예비무리단이 현재 1,000명 필사자를 넘어섰고 조화우주 시민권에 대한 그들의 통찰력은 그들이 거주하는 현세의 구체를 훨씬 초월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인간 존재들로 구성된 이 독특한 집단의 실제적인 본성을 계시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었다.)

114:7.14 (1258.6) 유란시아 필사자들에게는 그들의 세계가 지역우주의 특정한 순환회로들로부터 비교적 영적으로 고립되어 조화우주에서 버림받았거나 또는 행성에서의 고아의 처지라는 느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 행성에는 세계적 관련사들과 인간 운명들에 대한 분명하고도 효력 있게 보살피는 초인간적 감독이 작용하고 있다.

114:7.15 (1258.7) 그러나 너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상적인 행성 정부에 대한 빈약한 관념에 도달할 수 있을 뿐이다. 행성영주가 있었던 초기 시대 이후로, 유란시아는 세계의 성장과 인종적 발달에 대한 신성한 계획의 실패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 왔다. 사타니아에 있는 거주민이 사는 충성스러운 세계들은 현재의 유란시아처럼 그렇게 통치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다른 세계들과 비교한다면, 너희가 사는 행성의 정부들은 그렇게 열등한 상태가 아니며; 오직 하나 또는 두 세계들만이 보다 더 못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몇몇 세계들은 약간 더 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세계들은 너희와 평등한 수준에 있다.

114:7.16 (1259.1) 지역우주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행성 관리-행정의 불안정한 상태가 언제 끝나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네바돈 멜기세덱들은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개인적으로 두 번째 도착할 때까지 행성 정부와 관리-행정 체제에 거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려는 경향이 있다. 분명한 것은, 이때가 되면, 이미 지나가지 않았다면, 전면적인 변화들이 행성 운영에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 통치에 대한 그러한 변화들의

본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추측할 수조차 없는 것처럼 보인다. 네바돈 우주에서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전체 역사 속에서 그러한 에피소드가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유란시아의 미래 정부와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 중에서 한 가지 두드러진 것은 천사장들의 순환회로와 분야별 본부들이 이 행성에 위치하는 장소이다.

114:7.17 (1259.2) 고립된 너희의 세계는 우주의 조연에서 잊힌 상태가 아니다. 유란시아는 죄로 인하여 비난을 받아 조화우주 고아가 된 상태가 아니며 반란으로 인하여 신성한 보호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가 아니다. 유버사로부터 구원자별로 그리고 계속하여 예루셈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하보나에서 그리고 파라다이스에서, 그들은 모두 우리가 여기 있음을 알고 있다; 현재 유란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너희 필사자들은 이 구체가 불성실한 한 행성영주에 의해 마치 배신을 당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그리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 나은 상태와 마찬가지로 신실하게 관찰되고 있으며 사랑스럽게 소중히 간직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이신 그 분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영원한 진리이다.

114:7.18 (1259.3) [유란시아에 주둔한 세라핌천사 우두머리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 115 편 최극 존재

115:0.1 (1260.1) 아버지 하느님에게, 아들신분은 엄청난 관계이다. 최극자 하느님에게, 성취는 지위에 필수전제조건이다.—사람은 무엇일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제 1 장. 개념 구조의 상대성

115:1.1 (1260.2) 높건 낮건 모든 마음의 타고난 능력이, 그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우주 틀을 형성할 수가 없다면, 부분적이고 미완성이고 그리고 진화하는 지능들은 주(主)우주 안에서 아무 것도 어찌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최초의 이성적인 생각 원형틀을 형성할 능력도 없게 될 것이다. 만약에 마음이 결말을 헤아릴 수 없고, 만약에 그것이 참된 기원들을 꿰뚫어볼 수도 없다면, 그러한 마음은 틀림없이 결말들을 가정하면서 그리고 이들 마음에서-창조된 가정들의 틀 안에서 어떤 논리적 생각의 수단을 가질 수 있을 기원들을 발명할 것이다. 그리고 창조체 생각을 위한 그러한 우주 틀들이 이성적인

지능 작용에 필수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더 큰 혹은 더 작은
정도에 이르도록 예외없이 잘못된 것이다.

115:1.2 (1260.3) 우주의 개념적인 틀들은 오직 상대적으로
참이다; 그들은 확장되고 있는 조화우주 이해의 확대
앞에서 결국에는 길을 내줘야만 하는,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발판들이다. 진리와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 도덕성,
윤리, 의무, 사랑, 신성, 기원, 실존, 목적, 운명, 시간, 공간,
심지어는 신(神)에 대한 납득도 오직 상대적으로 참이다.
하느님은 아버지 개념보다 아주 훨씬 더 크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하느님에 대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자-창조체 관계에서의
아버지-아들 묘사는, 오르본톤에서, 하보나에서, 그리고
파라다이스에서 달성될 신(神)에 대한, 저들 초(超)-필사자
개념들에 의해 증강될 것이다. 사람은 하나의 필사자 우주
틀 안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이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그리고 더 높은 틀들을 그려볼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15:1.3 (1260.4) 우주들의 우주에 대한 필사자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우주 실체의 다양한 차원들이 유한, 절대, 그리고

아(亞)절대라고 명명되었다. 이것들 중에서 오직 절대자만
분별불가하게 영원하고, 참으로 실존하는 것이다.
아(亞)절대체들과 유한체들은 무한의 기원적이고
원초적인 절대 실체에서의 파생적인, 변형, 분별된-자격,
그리고 희석들이다.

115:1.4 (1260.5) 유한자의 영역은 하느님의 영원한 목적의
덕분으로 존재한다. 높고 낮은 유한 창조체들은 이론들을
제창할 수 있으며, 조화우주 섭리 속에서 유한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론들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렇게 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존재한다. 우주는 설명될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유한한 창조체가 조상이 되는 존재들, 창조자들
또는 이전-창조자들의 선행되는 행동들과 이전-실존하는
의지에 호소하지 않고는 그 자신의 개별적 실존에 대한
이성적 원인을 제공할 수 없다.

제 2 장. 최극위를 위한 절대 기초

115:2.1 (1261.1) 실존적 입장에서 볼 때, 은하계들에 두루 어떤
새로운 것도 발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신 이 안에
고유하게 있는 무한의 완성은 일곱 절대자들에서

영원하게 제시되어 있고, 삼원일체에서 기능적으로 관계적-연합되어있으며, 삼극일체에서 전달되도록 관계적-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한이 이 절대적 관계적-연합들에서 그렇게 실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조화우주 체험적인 것들을 실현하는 것을 결코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는다. 유한 창조체의 관점에서는, 무한은 많은 잠재적인 것, 현재 제시되어 있는 실재성이기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에 속하는 많은 것들을 포함한다.

115:2.2 (1261.2) 가치는 우주 실체에서 독특한 요소이다. 우리는 무한하고 신성한 어떤 것의 가치가 어떻게 증가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무한한 신(神)의 관계들 속에서조차 가치가 증강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들이 변경될 수 있음을 발견한다. 체험적 우주들에게는 신성한 가치들조차도 실체 의미들에 대한 확대된 이해에 의해 실재성들로서 증가된다.

115:2.3 (1261.3) 모든 체험적 차원에서의 우주적 창조와 진화에 대한 전체 개요는, 외견상 분명하게 잠재성들이 실재성으로 전환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변형은 공간

잠재력과 마음 잠재력 그리고 영 잠재력의 영역에서 똑같이 행하여야만 한다.

115:2.4 (1261.4) 조화우주의 가능성들이 실재적 실존으로 되는 분명한 방법은 여러 차원에 걸쳐 다양하며, 유한에서는 체험적인 진화이며 아(亞)절대 세계에서는 체험적 생겨남이다. 실존적 무한은 모든 것을 포함함에서 정말로 분별불가적이며,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의 포함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진화적인 유한 체험 과정을 위한 가능성까지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적 성장의 가능성은 최극자에 그리고 그 안에 영향을 미치는 삼극일체 관계들을 통하여 우주적 실재가 된다.

제 3 장. 기원적, 실재적 그리고 잠재적

115:3.1 (1261.5) 절대 조화우주는 개념적으로 한계가 없다; 이 일차적 실체의 범위와 본질에 대해 정의(定意)를 내리는 것은 무한에 분별된-자격들을 부여하는 것이고 영원의 순수한 개념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무한한-영원, 영원한-무한에 대한 관념은 범위에서는 분별불가적이고 사실에서는 절대적이다. 무한의 실체 또는 실체의 무한을 표현하기에 적당한 언어가 유란시아에는 과거나 현재

또는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한한 조화우주에서 유한한 창조체인 사람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실제로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제약이 없고, 한계가 없는, 시작이 없는, 끝이 없는 그 실존에 대한 왜곡된 반영과 희석된 개념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안하다.

115:3.2 (1261.6) 마음은 그러한 실체의 합일을 먼저 깨뜨리려고 시도하지 않고는 절대에 대한 개념을 파악할 희망을 결코 가질 수 없다. 마음은 모든 다양함을 통합하지만, 그러한 다양함이 존재하지 않는 바로 그 곳에서, 마음은 납득이 가는 개념들을 명확히 나타내려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그 어떤 아무런 기초도 없음을 발견한다.

115:3.3 (1261.7) 무한의 시원적 균형 상태는 인간이 이해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그에 앞서서 분할되기를 요구한다. 이 글들에서—창조체 마음의 최초의 가정—스스로 이신으로 표현되는 무한에는 합일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분별불가적 합일을 여전히 이루는 한편 이 합일이 어떻게 하여 2원성(二元性)과 3원성(三元性) 그리고 다양성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창조체는 결코 납득하지 못한다. 사람은 하느님의 복수(複數) 개인성구현과 나란히 있는 나뉘지

않는 삼위일체 신(神)을 잠깐 멈추어서 심사숙고 하고자 할 때 비슷한 문제에 봉착한다.

115:3.4 (1262.1) 이 개념이 한 단어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사람이 무한과 얼마나 먼가를 보여줄 뿐이다. 무한은 한 편에서는 통합의 상태인 반면, 또 다른 한 편에서는 끝이나 제한이 없는 다양성이다. 무한은, 유한한 지능체들에 의해 관찰된, 창조체 철학과 유한 형이상학의 최대 역설이다. 사람의 영적 본성이 무한한 아버지께 경배하는 체험에까지 도달하더라도, 사람의 지적 이해 능력은 최극존재의 최대 개념에 의해서 고갈된다. 최극자를 넘어서면, 개념들은 점점 더 이름일 뿐이다; 실체에 대한 참된 명칭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며; 점점 더 초(超)유한에 대하여 유한하게 납득하는 창조체의 구체적 투사 활동이 된다.

115:3.5 (1262.2) 절대 차원에 대한 한 가지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 위상들의 가정을 포함한다:

115:3.6 (1262.3) 1. 기원자. 첫째근원이며 중심에 대한 분별불가적 개념, 모든 실체가 기원되는 스스로 이신 이의 근원 현시활동.

115:3.7 (1262.4) 2. 실재자. 둘째근원이며 중심, 셋째근원이며 중심, 그리고 파라다이스 근원이며 중심이라는 실재성의 세 절대자들의 연합.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 그리고 파라다이스 섬으로 이루어진 이 삼극일체는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기원성에 대한 실재적 계시를 이룬다.

115:3.8 (1262.5) 3. 잠재자. 신(神) 절대자, 분별불가 절대자, 그리고 우주 절대자라는 잠재성의 세 절대자들의 연합. 실존적 잠재성의 이 삼극일체는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기원성에 대한 잠재적 계시를 이룬다.

115:3.9 (1262.6) 기원자와 실재자 그리고 잠재자의 상호-연관은 모든 우주 성장의 가능성을 가져오는 무한 속에서의 긴장 상태들을 초래한다; 성장은 칠중자와 최극자 그리고 궁극자의 본성이다.

115:3.10 (1262.7) 신(神) 절대자와 우주 절대자 그리고 분별불가 절대자의 관계적-연합에서, 잠재성은 절대적인 반면 실재성은 창발적이다; 둘째근원이며 중심과 셋째근원이며 중심 그리고 파라다이스 근원이며 중심의 관계적-연합에서는 실재성이 절대적인 반면 잠재성은 창발적이다;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기원성 안에서는

실재성이나 잠재성 중 어떤 것도 실존하거나 창발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아버지는 이시다.

115:3.11 (1262.8) 시간의 견지에서 볼 때, 실재자는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도 있는 것이다; 잠재자는 있게 되는 그리고 미래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기원자는 현재 존재하는 바로 그것이다. 영원의 견지에서 본다면, 기원자와 실재자 그리고 잠재자 사이의 차이점들은 그렇게 명백하지 않다. 이러한 삼원적 본질특성들은 파라다이스-영원 차원들에서는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다. 영원 속에서, 모든 것이 이다—단지 시간과 공간 속에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계시되지 않았을 뿐이다.

115:3.12 (1262.9) 창조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재성은 본체이고 잠재성은 수용능력이다. 실재성은 중심에 존재하고 그곳으로부터 가장자리의 무한 속으로 확대한다; 잠재성은 무한성 가장자리로부터 안쪽을 향하여 들어오고 그리고는 만물의 중심에서 한점으로 모인다. 근원성은, 잠재들로부터 실제들로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실제들로부터 잠재화를 이루는, 실체 변형에서의

순환주기의 이원적(二元的) 운동들을, 처음 일으키는
원인이고 그 다음에는 균형을 잡아주는 어떤 것이다.

115:3.13 (1262.10) 잠재성의 세 절대자들은 조화우주의 순전히
영원한 차원에서 활동한다, 그래서 하위-절대적인 그러한
차원들에서는 결코 기능할 수 없다. 실체의 하강하는
차원들에서는 잠재성의 삼극일체는 궁극자와 함께 그리고
최극자에서 현시된다. 잠재는 어떤 하위-절대 차원의 한
부분에 대해 시간적-실제화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집합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느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며,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115:3.14 (1263.1) 조화우주에 실존하는 것들이 그들의 중심을 갖는
것은 실재성의 삼극일체에서이다; 영이나 마음 또는
에너지이던 간에 모든 것은 아들, 영 그리고 파라다이스의
이 연관에 중심을 둔다. 영(靈) 아들의 개인성은 우주
전체에 걸친 모든 개인성의 주(主) 원형틀이다.
파라다이스 섬의 본체는 주(主) 원형틀로서, 하보나는
이에 대한 완전한 계시이며, 초우주는 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계시이다. 공동 행위자는 즉시 그리고 동시에 우주

에너지의 마음 활성화, 영(靈) 목적의 개념화이며 그리고 의지적인 목적을 지닌 물질적 차원과 동기를 지닌 영적인 차원들의 수학적 인과관계들의 집대성활동이다. 유한한 우주에서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아들, 영과 파라다이스는 최극자 안에서 조건을 갖추고 분별화되는 데에 따르는 그 궁극자 안에서 그리고 그 위에서 기능한다.

115:3.15 (1263.2) (신(神)의) 실재성 이라는 것은 사람이 파라다이스 상승에서 추구하는 그것이다. (인간에서의 신성) 잠재성 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 탐구에서 진화하는 그것이다. 기원자는 실제인 사람, 잠재인 사람 그리고 영원인 사람의 공존과 집대성활동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다.

115:3.16 (1263.3) 조화우주의 최종적인 활력은 실체의 잠재성으로부터 실재성으로 계속적인 전환을 행해야만 한다. 이론상으로는, 이러한 변형에 끝이 있겠지만, 사실에서는 잠재와 실재가 모두 기원(스스로 이신 이)에서 순환회로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정체화구현은 우주의 발전적 진보에 제한을 두는 것을 언제까지나 불가능하게 한다. 스스로 이신 이와

정체성 확인되는 어떤 것이든지 진보에 대한 끝남을 결코 발견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스스로 이신 이의 잠재의 실재성이 절대적이며 스스로 이신 이의 실재의 잠재성 역시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실재들은 지금까지 불가능하였던 잠재들의 실현에 새로운 큰길을 열어 줄 것이다—모든 인간 결정은 인간 체험 속에서 새로운 실체를 실재화할 뿐만 아니라 인간 성장을 위한 새로운 수용력을 열어 보인다. 사람은 모든 자녀에서 살아있고, 모론시아 진보자는 하느님을 아는 성숙한 사람 안에 살고 있다.

115:3.17 (1263.4) 성장 안에서 정적인 것은 전체 조화우주에서 결코 나타날 수 없다, 왜냐하면 성장의 기반—절대적 실재인 것—은 분별불가이기 때문이며, 성장의 가능성—절대적 잠재인 것들—은 무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천적인 견지에서, 우주의 철학자들은 끝남과 같은 그러한 것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115:3.18 (1263.5) 한정된 시각에서, 정말로 여러 끝남들. 많은 활동들의 종결들이 있다, 그러나 보다 높은 우주 차원에서 보다 큰 관점에서는, 종결들은 없으며, 다만 한 위상에서

다른 위상으로의 변화들이 있을 뿐이다. 주(主)우주 의 주요 연대기는 여러 우주 시대들, 하보나, 초우주, 그리고 외부 우주 시대들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연차적인 관계들의 이 기본적인 구분들도 끝이 없는 영원의 고속도로 선상에 있는 상대적인 경계표에 불과하다.

115:3,19 (1263.6) 최극존재의 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에 대한 최종적인 통찰은, 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이라는 개념 차원들을 넘어서 있는 궁극적 신성의 아(亞)절대적 본질특성들로 발전하는 창조체에게만 보일 수 있다.

제 4 장. 최극 실체의 근원들

115:4,1 (1263.7) 최극자 하느님의 기원(起源)에 대한 어떤 고려도 반드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기원적 신(神)이며, 반면에 최극자는 유래된 신(神)이기 때문이다. 최극자의 성장에 대한 어떤 고려도 반드시 실존적 삼극일체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절대적 실재성과 모든 무한 잠재성을 (첫째근원이며 중심에 관련하여)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화적 최극자는 실존의 유한 차원에서 그리고 그 차원에서 잠재들이 실재들로—변환—변형의

정점에 달하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지적인 초점이다. 두 가지 삼극일체들, 실재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은 우주에서 성장에 대한 상호관계들의 전체를 포함한다.

115:4.2 (1264.1) 최극자의 근원은—영원하고 실재적이며 나뉘지 않은 신(神)—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 있다. 최극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의 영(靈) 개인이다, 그리고 이 영 개인은 삼위일체로부터 파생한다. 그러나 최극자는 2차적으로—진화적 성장—성장의 신(神)이고 이 성장은 실재적이고 잠재적인 두 개의 삼극일체로부터 기원된다.

115:4.3 (1264.2) 만일, 무한한 삼극일체들이 유한 차원에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잠시 멈추어서 그들의 바로 그 무한성이 유한의 잠재성을 그 자체 속에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해라; 무한성은 가장 낮게 그리고 최상으로 분별화된 유한한 실존으로부터 가장 높고 그리고 분별불가적인 절대 실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115:4.4 (1264.3) 무한이 유한을 포함한다는 것은, 이 무한이 실재적으로 유한 존재들에게 어떻게 현시 되는지를 납득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러나 필사

사람에게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들은, 절대적인 하느님이 (절대로서) 모든 우주의 가장 낮고 작은 의지 창조체와도 실재적으로 직접 접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영원한 증거 중의 하나이다.

115:4.5 (1264.4) 실재와 잠재를 공동으로 포함하는 삼극일체들은 최극존재와 관련하여 유한 차원에 현시된다. 그러한 현시활동 기법은 직접적인 동시에 간접적이다: 삼극일체 관계들이 최극자에서 직접적으로 반향하는 한 직접적이고 그들이 아(亞)절대의 결국 생겨난 차원을 통하여 유래되는 한 간접적이다.

115:4.6 (1264.5) 전체 유한 실체인 최극 실체는 외부공간의 분별불가 잠재들과 모든 것들의 중심에 있는 분별불가 실재들 사이에서 역동적인 성장 과정에 있다. 유한 권역은 파라다이스의 아(亞)절대 대리자들과 시간의 최극 창조자 개인성들의 협동을 통하여 그렇게 사실화 한다. 세 명의 위대한 잠재적 절대자들의 분별화된 가능성들을 성숙시키는 행동은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과 그들의 초월 연관-동료들의 아(亞)절대 기능이다. 그리고 이 생겨남이 일정 지점을 달성하게 되면, 최극 창조자

개인성들이 진화하는 우주들을 사실적 존재로 만드는 오랜 세월의 임무에 참여하기 위하여 파라다이스로부터 나온다.

115:4.7 (1264.6) 최극위의 성장은 삼극일체들로부터 유래한다; 최극자의 영(靈) 개인은 삼위일체로부터 기원된다; 그러나 전능자의 힘 특권은 칠중 하느님의 신성결과에 근거되는 반면, 전능 최극자의 힘 특권들과 최극자 하느님의 영 개인과의 결합은, 이 진화하는 신(神) 안에 결합하는 요소로서 최극자의 마음을 증여하는, 공동 행위자의 사명활동의 덕분으로 발생하여 자리를 잡는다.

제 5 장.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대한 최극자의 관계

115:5.1 (1264.7) 최극존재는 자신의 개인적 그리고 영 본성의 실체를 위하여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실존과 행위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최극자의 성장이 삼극일체 관계의 문제인 반면, 최극자 하느님의 영 개인성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의존하고 그로부터 기원되었으며, 그것은 최극자의 진화적 성장이 그 주위에 점차적으로 전개되는 완전하고 무한한 안정의 절대적 중심-근원으로서 항상 남아 있다.

115:5.2 (1265.1) 삼위일체의 기능은 최극자의 기능에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가 최극위의 기능의 차원을 포함하여 모든 (전체) 차원에서 기능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보나 시대가 초우주들의 시대에게 양보하듯이, 즉각적인 창조자로서의 삼위일체의 인식 가능한 행동은 그렇게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자녀들의 창조적 행동에게 양보하고 있다.

제 6 장. 삼극일체들에 대한 최극자의 관계

115:6.1 (1265.2) 실재성의 삼극일체는 하보나-이후 신(新)시대들에서 직접적인 기능을 계속한다; 파라다이스 중력은 물질적 실존의 기본적 단위들을 장악하고, 영원한 아들의 영 중력은 영 실존의 근본적 가치들 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공동 행위자의 마음 중력은 지적 실존의 모든 극히 중대한 의미들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다.

115:6.2 (1265.3) 그러나 창조적 활동의 각 단계가 미지의 공간을 통하여 뺏어나갈 때, 그것은—절대 파라다이스 섬과 거기에 거주하는 무한 신(神)들—중앙에 자리 잡은 창조적 기세들과 신성한 개인성들에 의한 직접 행동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져서 기능하고 존재한다. 그러므로

조화우주 실존의 연속적인 이 차원들은 무한의 세 절대
개인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발전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115:6.3 (1265.4) 최극존재는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또는
파라다이스 섬의 비(非)개인적 실체 안에 명백하게
현시되지 않은 조화우주 사명활동을 위한 가능성들을
포용한다. 이 말은 이들 세 기본적 실재성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마땅히 존중하고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최극자의 성장은 신(神)과 파라다이스의 이들 실재성들에
근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神) 절대자와 우주 절대자
그리고 분별불가 절대자 안에서의 발전들 속에도
포함되어 있다.

115:6.4 (1265.5) 최극자는 하느님과-같음을-이름을 달성하는
진화하는 우주들의 창조체와 창조자로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유한 신(神)은 또한 대우주의 유한한
가능성들에 대한 창조체와 창조자 정복의 결과로서
성장을 체험하기도 한다. 최극자의 행동은 2중이다:
집중적으로는 파라다이스와 신(神)을 향하고, 광범위하게
잠재의 절대자의 무한성을 향한다.

115:6.5 (1265.6) 현재의 우주 시대에는 이러한 이원적(二元的) 행동이 대우주의 상승하고 하강하는 개인성들에서 계시되어 있다. 최극 창조자 개인성들과 그들의 신성한 모든 연관-동료들은 최극자의 밖으로 발산하는 행동의 반영이다, 반면 일곱 초우주들로부터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최극위의 안으로 향하여 모여드는 경향을 암시한다.

115:6.6 (1265.7) 유한한 신(神)은 이원적(二元的) 상관성을 항상 추구하며, 안쪽으로는 파라다이스와 그것으로 부터의 신(神)들을 향하고 바깥쪽으로는 무한과 그 가운데의 절대들을 향한다. 창조자 아들들에서 개인성구현되고 힘 통제자들에서 힘을 키우는 파라다이스-창조적 신성(神性)의 강력한 분출은 잠재성의 권역 안으로의 최극위의 밖을 향한 광대한 파동을 의미한다, 반면 대우주의 상승하는 창조체들의 끝없는 행렬은 파라다이스 신(神)과의 합일을 향하는 최극위의 강력한 안쪽 파동을 입증한다.

115:6.7 (1265.8) 인간 존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의 행동을 때때로 보이는 것에 나타난 그 효과들을 관찰함으로써 식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왔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들에서
최극위의 움직임들과 경향들을 대우주의 개인성들과
원형들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진화들의 반향들을
관찰함으로써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오래 전부터
배워왔다.

115:6.8 (1266.1) 비록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파라다이스 신(神)에 대한 유한한 반영으로서, 최극자가
외부 공간으로의 영원한 진보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외부 공간의 세 절대 잠재의 분별된-
자격으로, 이 최극존재는 파라다이스 응집을 언제까지나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원적(二元的) 행동은
현재 조직되어 있는 우주들에서의 기본활동들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제 7 장. 최극자의 본성

115:7.1 (1266.2) 최극 신(神)에서 스스로 이신 이—아버지는
지위의 무한성, 존재의 영원성 그리고 본성의 절대성에
선천적인 제한으로 부터 상대적으로 완벽한 해방을
성취하였다. 그러나 최극자 하느님은 우주 기능의 체험적
분별된-자격들에 종속됨으로서만 모든 실존적

한계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체험을 위한 수용력 달성에서, 유한의 하느님은 또한 그것을 위한 필요성에 종속되었다; 영원으로부터의 해방을 성취함에서, 전능자는 시간이라는 장벽들과 마주친다; 그리고 최극자는 성장과 발전을 실존의 부분성의 결과와 본성의 미완성, 존재의 비(非)절대성으로서 알 수 있을 뿐이다.

115:7.2 (1266.3) 이 모든 것은, 유한한 진보를 노력에, 창조체의 성취를 인내에, 그리고 개인성 개발을 신앙에 근거를 두어온 아버지의 계획에 따르는 것이 틀림없다. 최극자의 체험-진화를 그렇게 규정함으로써, 아버지는 유한한 창조체들이 우주들에 존재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체험적 진보에 의하여 때로는 최극위의 신성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들었다.

115:7.3 (1266.4) 최극자와 심지어는 궁극자를 포함하여, 일곱 절대자들의 분별불가한 가치들을 제외하고, 모든 실체는 상대적이다. 최극위라는 사실은 파라다이스 힘, 아들 개인성 그리고 공동 행위에 근거를 두지만, 그러나 최극자의 성장은 신(神) 절대자, 분별불가 절대자 그리고 우주 절대자 안에 포함된다. 그리고 합성하고 통합하는

이—최극자 하느님—신(神)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인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불가사의한 본성의 무한한 합일에
의해서 대우주 전체에 드리워진 유한 그림자의
개인화구현이다.

115:7.4 (1266.5) 삼극일체들이 유한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한, 그들은 최극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최극자는
절대 실재와 절대 잠재의 본성들에 대한 유한 분별된-
자격들의 조화우주 총합이며 신(神) 초점화구현이다.

115:7.5 (1266.6)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절대적 필연이라고
여겨진다; 일곱 주(主) 영들은 분명히 삼위일체
필연들이다; 최극자의 힘-마음-영-개인성 실재화구현은
진화적 필연이 되어야만 한다.

115:7.6 (1266.7) 최극자 하느님은 분별불가한 무한성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모든 상대성
차원들에서는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진화적
체험을 초점화구현 시키고 요약하고 포함시키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그의 신(神) 본성 안에서 이 형태의 실체
인식의 결과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한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궁극자 하느님의 초(超)체험적 그리고

초(超)유한적 현시활동인, 필연적인 생겨남의 출현에 기여할 목적으로 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115:7.7 (1267.1) 최극존재는 기원이 되는 삼위일체와의 관계, 활동의 우주 그리고 즉각적 운명의 궁극 삼위일체; 그러한 근원, 기능 그리고 운명을 고려하지 않고는 충분하게 올바르게 알 수가 없다.

115:7.8 (1267.2) 최극자는 진화적 체험을 취합하는 과정에 의해서, 유한을 아(亞)절대와 연결한다, 공동 행위자의 마음이 개인적 아들의 신성한 영성(靈性)과 파라다이스 원형틀의 불변하는 에너지들을 집대성시키는 것과 같으며, 우주 절대자의 현존이 신(神) 활성화를 분별불가 반응성과 통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리고 이 합일은 모든 사물들과 모든 존재들의 첫째 아버지-원인과 그리고 근원-원형틀의 기원적 합일에서의 탐지되지 않고 작용하고 있음에 대한 하나의 계시임에 틀림없다.

115:7.9 (1267.3) [유란시아에 잠시 머문 막강한 메신저에 의해 후원되었음]

제 116 편 전능 최극자

116:0.1 (1268.1) 만약에 사람이 자신의 창조자들—자신의 직속 감독자들—을 인지했다면, 한편으로는 신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유한하였다는 것,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하느님이 진화하고 있는 그리고 비(非)절대적인 신(神)이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현세적인 불평등의 모순들이 심오한 종교적 역설들로 되는 것이 그치게 될 것이다. 종교적 신앙이 더 이상 행복한 자들에서의 사회적 자기만족의 장려에, 한편으로는 오직 사회적 박탈을 당한 불행한 피해자의 금욕주의적 체념에 용기를 북돋우는 봉사에, 천하게 몸을 팔수는 없을 것이다.

116:0.2 (1268.2) 하보나의 절묘하게 완전한 구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완전하고 무한하며 그리고 절대적인 창조자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은 이유도 있고 동시에 논리적이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와 논리가 모든 정직한 존재들로 하여금, 유란시아의 혼란과 고통 그리고 불공평을 바라볼 때에, 너희 세계가 하위-절대, 무한-이전 그리고 완전함이 아니었던 창조자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관리되어 왔다고 결론내리도록 강요할 것이다.

체험적 성장은 창조체-창조자

동반자관계—하느님과 사람의 관계적-연합—를
 암시한다. 성장은 체험적 신(神)의 특징이다. 하보나는
 성장하지 않았다; 하보나는 지금 그대로이고 항상
 그대로였다; 그 근원이신 영속하는 하느님들처럼 그곳은
 실존적이다. 그러나 성장은 대우주를 특징짓는다.

전능 최극자는 힘과 개인성의 살아있고 진화하는
 신(神)이다. 그의 현재 권역, 대우주 역시 힘과 개인성의
 성장하는 영역이다. 그의 운명은 완전이다, 그러나 그의
 현재 체험은 성장의 요소들과 미완성 지위를 감싸 안고
 있다.

최극존재는 1차적으로 중앙우주에서 영
 개인성으로 기능하고 있다; 2차적으로는 대우주에서 힘의
 개인성. 전능 하느님으로 기능한다. 주(主)우주 에서
 최극자의 제3의 기능은 현재 잠재적이며, 알려지지 않은
 마음 잠재로만 오직 존재한다. 최극존재의 이 세 번째
 발달이 무엇을 나타낼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초우주들이 빛과 생명에 정착할 때, 최극자가 외부
 우주들의 초(超)전능으로서 힘을 확대하면서 대우주의

전능적 그리고 체험적 주권자로서 유버사로부터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다른 이들은 최극위의 세 번째 단계가 신(神) 현시활동의 세 번째 차원을 포함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누구도 실제로 모른다.

제 1 장. 최극 마음

116:1.1 (1268.6) 진화하는 각각의 창조체 개인성의 체험은 전능 최극자의 체험의 한 위상이다. 초우주들의 각각의 물질적 부분에 대한 지능적 정복은 전능 최극자의 확장되는 통제의 일부분이다. 힘과 개인성의 창조적 합성은 최극 마음의 창조적 충동의 일부분이며 최극존재 안에서의 합일의 진화적 성장의 바로 그 본질이다.

116:1.2 (1269.1) 최극위의 힘과 개인성 속성의 연합은 최극 마음의 기능이다; 전능 최극자의 완벽한 진화는—신성한 속성들의 어떤 느슨하게 조화-협동된 관계적-연합에서가 아닌—하나로 통합되고 개인적인 신(神)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욱 넓은 견지에서, 최극자와 거리가 먼 전능, 전능자와 거리가 먼 최극위는 없을 것이다.

116:1.3 (1269.2) 진화 시대에 두루, 최극자의 물리적인 힘의 잠재는 일곱 최극 힘 지도자들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마음 잠재는 일곱 주(主) 영들에게 위임되어 있다. 무한 마음은 무한한 영의 기능이다; 조화우주 마음, 일곱 주(主) 영들의 사명활동; 최극 마음은 대우주의 조화-협동에서 그리고 칠중 하느님의 계시와 달성의 기능적 관계적-연합에서 실재화하는 과정에 있다.

116:1.4 (1269.3) 시간-공간 마음, 조화우주 마음은 일곱 초우주들에서 서로 다르게 기능하지만, 최극존재 안에서 알려지지 않은 어떤 연관적인 기법에 의해 조화-협동을 이룬다. 대우주에 대한 전능자 전반적-통제가 순전히 물리적 그리고 순전히 영적인 것이 아니다. 일곱 초우주들에서 그것이 일차적으로는 물질적이고 영적이지만, 지적인 동시에 영적인 최극자의 현상들도 또한 있다.

116:1.5 (1269.4) 이 진화하는 신(神)의 어떤 다른 측면들보다도 최극위의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더 잘 알지 못한다. 그것은 대우주에 두루 분명히 활동적이며, 광대한 범위에 속하는 주(主)우주 기능의 잠재적 운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안다: 외형이 완벽한 성장에 도달하는 것에 반하여, 그리고 영이 완전한 발달을 성취하는 것에 반하여, 마음은 진보를 결코 멈추지 않는다—그것은 끝남이 없는 진보의 체험적 기법이다. 최극자는 체험적 신(神)이며 그렇기 때문에 마음 달성의 완성을 결코 이루지 못한다.

제 2 장. 전능자와 칠중 하느님

116:2.1 (1269.5) 전능자의 우주적 힘 현존의 나타남은 진화적인 초우주들의 높으신 창조자들과 통제자들의 조화우주 행동 단계에서의 나타남과 동시에 일어난다.

116:2.2 (1269.6) 최극자 하느님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로부터 자신의 영과 개인성이 기인한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그는 창조자 아들들, 옛적으로 늘 계신이 그리고 주(主) 영들의 행위들 안에서 힘을 실제화하며, 그들의 집단적인 행위들이 일곱 초우주에서 그리고 그것들에 대하여 전능한 주권으로서 그의 확장하는 힘의 근원이다.

116:2.3 (1269.7) 분별불가 파라다이스 신(神)은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창조체들에게 이해될 수 없다. 영원과 무한성은 시간-공간 창조체들이 납득할 수 없는 신(神) 실체의

차원을 암시한다. 신(神)의 무한성과 주권의 절대성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속에 고유하며, 삼위일체는 필사
사람의 납득을 넘어서는 하나의 실체이다. 시간-공간
창조체들은 우주적 관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성의 의미하는 가치들을 납득하기 위해서, 기원들,
상대성들 그리고 운명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신(神)이 감쇄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성의 가외-파라다이스 개인성구현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렇게 해서 최극 창조자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의
실존이 초래하고, 그들은 생명의 빛이 최고로 먼 곳에서
그리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표현이 진화 세계위에서 증여
아들들의 지상(地上) 삶 안에서 발견할 때까지 그 생명의
빛을 파라다이스 근원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언제까지나
실어 나른다.

116:2.4 (1270.1) 그리고 이것이 칠중 하느님의 기원이다, 그의
연속적인 차원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필사 사람이
만나게 된다:

116:2.5 (1270.2) 1. 창조자 아들들 (그리고 창조 영들)

116:2.6 (1270.3) 2. 옛적으로 늘 계신이

116:2.7 (1270.4) 3. 일곱 주(主) 영

116:2.8 (1270.5) 4. 최극존재.

116:2.9 (1270.6) 5. 공동 행위자.

116:2.10 (1270.7) 6. 영원한 아들.

116:2.11 (1270.8) 7. 우주 아버지.

116:2.12 (1270.9) 처음 세 차원은 최극 창조자들이며, 마지막 세 차원은 파라다이스 신(神)들이다. 최극자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체험적 영 개인성구현으로서 그리고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창조자 자녀들의 진화적인 전능함의 체험적 초점으로 언제나 개입한다. 최극존재는 일곱 초우주들에게 그리고 현재의 우주 시대를 위한 신(神)의 최대 계시이다.

116:2.13 (1270.10) 필사 논리의 기법으로, 칠중 하느님의 처음 세 차원들의 집합적인 행위들에 대한 체험적 재-통일이 파라다이스 신(神)의 차원과 동등하리라는 것이 추론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파라다이스 신(神)은 실존적 신(神)이다. 그들의 힘과 개인성의 신성한 합일 안에서, 최극 창조자들은 체험적 신(神)의 새로운 힘

잠재의 구성과 표현이다. 그리고 체험적으로 기원이 되는 이 힘 잠재는—최극존재—삼위일체 기원의 체험적 신(神)과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연합을 발견한다.

116:2.14 (1270.11) 최극자 하느님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기능적 활동들이 그의 진화하는 전능의 힘을 실재적으로 통합하는 그 초우주 창조자들 전체이거나 또는 어느 하나가 아니다. 최극자 하느님은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반면, 오직 칠중 하느님의 처음 세 차원의 조화-협동된 기능들을 통해서만 힘의 개인성으로서 진화 창조체들에게 현시할 수 있게 된다. 전능 최극자는 현재 최극 창조자 개인성들의 활동들을 통하여 시간-공간에서 사실화 되고 있다, 그것은 마치 영원 안에서 공동 행위자가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뜻에 따라 존재로 번쩍 생겨나는 것과 같다. 칠중 하느님의 처음 세 차원들의 이 존재들은 전능 최극자가 가진 힘의 바로 그 본성이자 근원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의 행정-관리적인 행동들을 항상 동반하고 유지한다.

제 3 장. 전능자와 파라다이스 신(神)

116:3.1 (1270.12) 파라다이스 신(神)들은 대우주에 두루 그들의 중력 순환회로 속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그들의 다양한 대리자들과 다른 현시활동들을 통하여서도 기능한다:

116:3.2 (1270.13) 1.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마음 초점화구현. 에너지와 영의 유한한 영역들은 공동 행위자의 마음 현존에 의해 정말로 서로 묶여 있다. 이것은 지역우주의 창조 영으로부터 초우주의 반영 영들을 거쳐서 대우주의 주(主) 영들에 이르기까지 사실이다. 이러한 여러 지능 초점으로부터 퍼져나가는 마음 순환회로들은 창조체 선택의 조화우주의 경기장을 나타낸다. 마음은 창조체들과 창조자들이 매우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유연한 실체이다; 이것은 물질과 영을 연결하는 생명의 고리이다.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마음 증여가 최극자 하느님의 영 개인을 진화적 전능자의 체험적 힘과 통합한다.

116:3.3 (1271.1) 2. 둘째근원이며 중심의 개인성 계시. 공동 행위자의 마음 현존들이 신성의 영을 에너지의 원형들과 통합한다. 영원한 아들과 그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증여 육신화들이 창조자의 신성한 본성을 창조체의 진화적

본성과 통합, 실재로 융합한다. 최극자는 창조체인 동시에 창조자이다; 그의 존재의 가능성은 영원한 아들과 그의 조화-협동자이며 종속적인 아들들의 증여 행위들 속에서 그렇게 계시된다. 아들관계의 증여 계층들, 미가엘들과 아보날들은 진화 세계에서 실재의 창조체 삶을 살아감에 따라 그들의 것이 되는 진실한 창조체 본성으로서 그들의 신성한 본성들을 실재적으로 증강시킨다. 신성(神性)이 인간성과 비슷하게 될 때, 인간성이 신성하게 된다는 가능성이 이 관계 속에 본질적으로 들어 있다.

116:3.4 (1271.2) 3.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내주하는 현존. 마음은 영원인성과 에너지 반응을 통합한다; 증여 사명활동은 신성 하강과 창조체 상승을 통합한다; 우주 아버지의 내주하는 단편들은 진화하는 창조체들을 파라다이스의 하느님과 실재적으로 통합한다. 수많은 계층의 개인성에 내주하는 아버지의 그러한 많은 현존들이 있으며 그리고 필사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의 이 신성한 단편들은 생각 조절자들이다. 신비 감시자들이 인간 존재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최극존재에 대한 것과 같다. 조절자들은 절대적 토대이며, 그리고 절대적 토대 위에서 자유의지의 선택은 영원자 본성, 사람의

경우에서 최종자 본성, 최극자 하느님에서 신(神) 본성의 신성한 실체를 진화하도록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116:3.5 (1271.3) 아들관계의 파라다이스 계층들의 창조체 증여는 신성한 이 아들로 하여금 우주 창조체들의 실재적 본성의 획득에 의해 그들의 개인성들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 반면에 그러한 증여들은 신성 달성의 파라다이스 통로를 창조체 자신들에게 반드시 계시한다. 우주 아버지의 조절자 증여는 그에게 의지적인 창조체들의 개인성들을 그 자신에게로 끌어올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유한한 우주에서의 모든 이들 관계에 두루, 공동 행위자는 이들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 사명활동의 언제나-현재 근원이다.

116:3.6 (1271.4) 이것들과 다른 많은 방법으로 파라다이스 신(神)들은 그들이 공간의 순환하는 행성들에서 전개하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진화의 최극 개인성 결과에서의 창발 안에서 그들이 정점에 오르는 것처럼 그에 따라, 그렇게 시간의 진화 속에 참여한다.

제 4 장. 전능자와 최극 창조자

116:4.1 (1271.5) 최극 총체자의 합일은 유한한 부분들의 진보적 통일에 의존한다; 최극자의 실재화구현은 최극위 요소들—우주들의 창조자들, 창조체들, 지능체들, 그리고 에너지들—의 바로 이 통일의 결과이고 그 산물이다.

116:4.2 (1272.1) 최극위의 주권이 그것의 시간 발전을 겪는 그러한 시기 동안, 한편으로는 그의 시원적 개인성과 함께하는 공동 행위자, 일곱 주(主) 영들과 최극존재가 각별히 가까운 관계로 보이지만, 최극자의 전능 힘은 칠중 하느님의 신성 행동들에 의존한다. 공동 행위자로서의 무한한 영은 진화적 신(神)의 미완성을 보완하는 많은 방법들로서 기능하며 최극자와 매우 가까운 관계들을 유지한다. 이 관계의 긴밀성은 모든 주(主) 영들에 의해 어느 정도 공유되지만 특별히 최극자를 대변하는 제7번 주(主) 영에 의해 그러하다. 이 주(主) 영은 최극자를 안다.—그와 개인적인 접촉으로 있다.

116:4.3 (1272.2) 창조의 초우주 기획의 구체적 투사 활동에서 초기에, 주(主) 영들은, 49명의 반영 영들을 공동(共同) 창조하는 것에서 조상이 되는 삼위일체와 같이 합쳤고, 동시에 최극존재는 파라다이스 신(神)의 창조하는

자녀들과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공동행위의 정점을 이루는 자로서 창조적으로 기능하였다. 장엄자가 나타났고 그 후로 항상 최극 마음의 조화우주 현존을 초점화구현 시켰으며, 한편으로 주(主) 영들은 조화우주 마음의 멀리 퍼지는 사명활동을 위한 근원-중심들로서 존속한다.

116:4.4 (1272.3) 그러나 주(主) 영들은 반영 영들의 감독을 지속한다. 7번째 주(主) 영은 (중앙우주에서 오르본톤에 대한 그의 전체적인 감독에서) 유버사에 위치한 일곱 반영 영들과 (전반적-통제하면서) 개인적인 접촉에 있다. 그의 초우주-상호 그리고 초우주-내부 통제와 관리-행정에서 그는 각각의 초우주 수도에 위치한 그의 고유 유형인 반영 영들과 반영적 접촉을 이룬다.

116:4.5 (1272.4) 이 주(主) 영들은 최극위 주권의 지지자들과 증강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 최극자의 창조적 목적들에 의해 반대로 영향을 받는다. 대개, 주(主) 영들의 집합적인 창조계들은 유사-물질 계층(힘 지도자들 등등)으로 되어있고 반면, 그들의 개별적 창조계들은 영적 계층(초(超)천사 등등)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주(主)

영들이 최극존재의 뜻과 목적에 반응하여 일곱 순환회로 영들을 집합적으로 산출하였을 때, 이 창조 활동의 산물은 물질적이거나 유사-물질적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주목해야 한다.

116:4.6 (1272.5) 그리고 그것이 초우주들의 주(主) 영들과 함께 인 것처럼, 그것은 이 초(超)창조계에 대한 삼원적 통치자들—옛적으로 늘 계신이—과 함께 있다. 시간-공간에서의 삼위일체 공의-심판의 이들 개인화구현들은 최극자의 전능한 힘을 동원하기 위한 현장 지레받침들이며, 그것들은 시간-공간의 권역에서 삼위일체로서의 주권의 진화를 위한 칠중 초점으로 봉사한다. 파라다이스와 진화하는 세계들 사이에 있는 그들의 유리한 중간 지점에서, 이들 삼위일체-기원 주권자들은 양 쪽 길을 다 보고, 두 길을 다 알며, 두 길을 조화-협동시킨다.

116:4.7 (1272.6) 그러나 지역우주들은, 조화우주적으로 합산될 때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최극자의 체험에 따라 그리고 체험 안에서 신(神) 진화가 성취하고 있는 실재적 기초를

구성하는, 그곳에서 마음 실험, 은하 탐험, 신성 전개,
그리고 개인성 진보가 수행되고 있는, 실제 실험실이다.

116:4.8 (1272.7) 지역우주들에서 창조자들도 진화한다; 공동
행위자의 현존은 살아있는 힘 초점으로부터 우주 어머니
영의 신성한 개인성의 지위로 진화한다; 창조자 아들은
실존적 파라다이스 신성의 본성으로부터 최극 주권의
체험적 본성으로 진화한다. 지역우주들은 참된 진화의
출발점들, 그들이 있게 되는 그대로 그들 자신들의 공동
창조자들이 되어가는 자유의지의 선택이 자질로서 부여된
선의의 불완전 개인성들의 산란 장소들이다.

116:4.9 (1273.1) 진화하는 세계들에 자신을 증여하면서 치안법관
아들들은, 물질 인간 본성의 가장 높은 영적 가치들과의
체험적 통일에서, 파라다이스 신성이 나타내어지는
본성들을 결국에는 획득한다. 그리고 이들과 그리고 다른
증여들을 통하여 미가엘 창조자들은 마찬가지로 그들의
실재적인 지역우주 자녀들의 본성들과 조화우주 관점들을
획득한다. 그러한 주(主) 창조자 아들들은 하위-최극
체험의 완성에 근접한다; 그리고 그들의 지역우주 주권이
연관된 창조 영들을 포용할 정도로 확대될 때, 진화적

대우주의 현재 잠재들 안에서 최극위의 한계에
근접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16:4.10 (1273.2) 증여된 아들들이 사람에게 하느님을 발견하는
새로운 길들을 계시할 때, 그들은 신성 달성의 이 길들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최극자의 현존을 통하여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개인성에게로 인도하는 진보의
영속하는 고속도로들을 밝혀준다.

116:4.11 (1273.3) 지역우주는 하느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가장 큰 영적 상승을
체험할 수 있는, 그들 자신의 공동창조에의 체험적 참여의
최대를 성취할 수 있는, 그 개인성들을 위한
출발지점들이다. 바로 그 지역우주들은, 그곳에서 진화
창조체가 파라다이스 상승자에 대하여 가지는 깊은
의미와 마찬가지로, 하강하는 개인성들을 위하여
그곳에서 그들에게 의미 있는 어떤 것을 성취하는. 가능한
한 가장 깊은 체험을 마찬가지로 제공한다.

116:4.12 (1273.4) 실재화하는 최극자에서 이 신성 집단화가 정점을
이루는 데 따라서 필사 사람이 칠중 하느님의 충분한
기능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극자의 전능한 힘의

진화에 똑같이 필요한 우주적 개인성들의 다른 계층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설명은 인간 존재들의 교화를 위하여 제시되었으며, 따라서 필사 사람에게 관련되는 칠중 하느님의 진화에서 작용하는 그 요소들에게만 주로 한정된다.

제 5 장. 전능자와 칠중 통제자

116:5.1 (1273.5) 너희는 지금까지 최극존재에 대한 칠중 하느님의 관계를 배워왔으며, 너희는 이제 칠중 하느님이 통제자들뿐만 아니라 대우주의 창조자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대우주의 이 칠중 통제자들은 다음의 존재들을 포옹한다:

116:5.2 (1273.6) 1. 주(主)물리통제자들.

116:5.3 (1273.7) 2. 최극 힘 중심들.

116:5.4 (1273.8) 3. 최극 힘 지도자들.

116:5.5 (1273.9) 4. 전능 최극자.

116:5.6 (1273.10) 5. 행동의 하느님—무한한 영.

116:5.7 (1273.11) 6. 파라다이스 섬.

116:5.8 (1273.12) 7. 파라다이스의 근원—우주 아버지.

116:5.9 (1273.13) 이 일곱 집단들은 칠중 하느님으로부터 기능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이 신(神) 관계적-연합의 물리적-통제 차원을 구성한다.

116:5.10 (1273.14) 에너지와 영의 분기점(영원한 아들과 파라다이스 섬의 공동 현존으로부터 파생하고 있는)은 일곱 주(主) 영들이 그들의 집합적 창조의 첫 번째 행동에 연합적으로 들어갔을 때 초우주 감각으로 상징화되었다. 이 에피소드는 일곱 최극 힘 지도자들의 나타남을 증거했다. 그것과 동시에 주(主) 영들의 영적 순환회로들은 힘 지도자 감독의 물리적 행동들로부터 대조적으로 구별되었으며, 조화우주 마음은 물질과 영을 조화-협동시키는 새로운 요소로서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116:5.11 (1274.1) 전능 최극자는 대우주의 물리적 힘의 전반적-통제자로서 진화하고 있다. 현재 우주 시대에서 이 물리적 힘의 잠재는 일곱 최극 힘 지도자들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힘 중심지들의 고정된 장소들을 통하여 그리고 물리통제자들의 활동적 현존을 통하여 활동한다.

116:5.12 (1274.2) 시간의 우주들은 완전하지 않으며,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다. 완전을 향한 투쟁은 지적 그리고 영적 차원들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질량의 물리적 차원과도 관계된다. 일곱 초우주들의 빛과 생명 속에 정착은 그들이 물리적 안정을 달성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물질적 평형의 최종 달성이 전능자의 물리적 통제의 완벽한 진화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추측된다.

116:5.13 (1274.3) 우주 설립의 초기에는 파라다이스 창조자들도 시원적으로 물질적 평형에 관여한다. 지역우주의 원형들은 힘 중심들의 활동의 결과로써 뿐만 아니라 창조 영의 공간 현존 때문에 모양을 갖춘다. 그리고 이 지역우주 설립 초기 신(新)시대에 두루, 창조자 아들은 물질적 통제에 대해 거의 납득되지 않는 속성을 나타내며, 그는 그 지역우주의 전체적 평형이 확립될 때까지 자신의 수도 행성을 떠나지 않는다.

116:5.14 (1274.4)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든 에너지는 마음에 반응하며, 물리통제자들은 파라다이스 원형들의 활성화인 마음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힘 지도자들의 지능은 물리적 통제를 이룩하는 임무에 끊임없이 헌신되어 있다.

에너지의 관계들과 질량의 행동들에 대한 물리적 통치를 위한 그들의 투쟁은, 그들이 그들의 영존하는 활동권역을 구성하는 에너지와 질량에 대한 한정된 승리를 성취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116:5.15 (1274.5) 시간과 공간의 영 투쟁들은 (개인적) 마음의 중재에 의해서 물질에 대한 영(靈) 통치의 진화로서 해야만 된다; 우주들의 물리적 (비(非)개인적) 진화는 영의 전반적-통제에 종속하는 마음의 평형 개념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화우주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야만 한다. 대우주 전체의 모든 진화는 영에 조화-협동된 지능과 에너지-통제하는 마음의 개인성 통일의 문제이며, 그리고 최극자의 전능한 힘의 충분한 출현으로 계시될 것이다.

116:5.16 (1274.6) 역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어려움은 성장하는 조화우주라는 사실성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다. 물리적 창조의 확립된 순환회로들은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질량의 나타남에 의해 계속적으로 위태롭게 되고 있다. 성장하는 우주는 안정되지 않은 우주이다; 따라서 전체 조화우주의 어떤 부분도 시간의 충분함이 일곱

초우주들의 물질적 완벽함을 증명하기까지는 실제적인 안정을 발견할 수 없다.

116:5.17 (1274.7) 빛과 생명의 안정된 우주들에서 예기치 못한 주된 중요성의 물리적 사건들은 없다. 물리적 창조에 대한 상대적으로 완벽한 통제가 성취되었다; 진화 우주들과 안정된 우주들이 가지는 관계에서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주 힘 지도자들의 솜씨에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대우주가 진화적 표현의 정점에 다다름에 따라 새로운 창조 활동의 감소와 함께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제 6 장. 영의 통치

116:6.1 (1275.1) 진화적인 초우주들에서 개인성을 제외하고는 에너지-물질이 지배적이다, 그곳에서 영은 승리를 위하여 마음의 중재를 통하여 투쟁하고 있다. 진화하는 우주들의 목표는 마음에 의한 에너지-물질의 정복, 마음과 영의 조화-협동,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개인성의 창조적이고 통합하는 현존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성에 대하여, 물리적 체계들은 종속적이 되게 하고; 마음

체계들은 조화-협동이 되게 하고; 영 체계들은 지배적이 되게 한다.

116:6.2 (1275.2) 힘과 개인성의 이 연합은 최극자로서 그리고 최극자 안에서 신(神) 차원들 위에 표현된다. 그러나 영 통치의 실재적인 진화는 대우주의 창조자들과 창조체들의 자유의지 행동들에 입각된 일종의 성장이다.

116:6.3 (1275.3) 절대 차원들에서는 에너지와 영이 하나이다. 그러나 그러한 절대 차원들에서 떠나자마자, 차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에너지와 영이 파라다이스로부터 공간을 향하여 움직임에 따라 그들 사이의 간격은 지역우주들 안에서 그들이 크게 달라질 때까지 넓어진다. 그들은 더 이상 일치하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비슷하지도 않고, 그들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이 개입해야만 한다.

116:6.4 (1275.4) 그 에너지는 마음 활동에 대한 에너지의 반응을 드러내는 통제자 개인성들의 활동에 의해서 지도 받을 수 있다. 이들 동일한 통제하는 실존개체들의 활동을 통하여 질량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은 계층-산출하는 마음의 현존에 대하여 질량이 반응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그리고

의지적 개인성에서 영 스스로가 마음을 통하여 에너지-물질의 정복을 위해 분투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유한 창조의 잠재적 합일을 드러낸다.

116:6.5 (1275.5) 우주들의 우주에 두루, 모든 기세들과 개인성들의 상호 의존이 있다. 창조자 아들들과 창조 영들은 우주들의 조직에서 힘 중심들과 물리통제자들의 협동하는 기능에 의존한다; 최극 힘 지도자들은 주(主) 영들의 전반적-통제 없이는 미완성이다. 인간 존재에서 물리적 생명의 장치는 부분적으로는 (개인적) 마음의 명령에 반응한다. 바로 이 마음은 반대로 의도적인 영의 인도에 의해 지배되며, 그러한 진화적 발달의 결과가 최극자의 새로운 자손, 여러 종류의 조화우주 실체의 새로운 개인적 통일의 산물이다.

116:6.6 (1275.6) 그리고 그것이 부분의 경우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것은 전체의 경우에도 그렇다; 최극위의 영(靈) 개인은 신(神)의 완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리고 삼위일체 관계적-연합의 운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능자의 진화적인 힘을 필요로 한다. 노력은 시간과 공간의 개인성들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노력의 절정과 극치는 전능 최극자의 행동이다. 그리고 전체의 성장이

부분들의 집합적 성장의 합인 반면, 부분들의 진화는 전체의 의도적 성장에 대한 부분화된 반영이라는 사실이 똑같이 뒤따른다.

116:6.7 (1275.7) 파라다이스에서는 단일소(單一素)와 영이—이름만 제외하면 구별할 수 없는 하나와 같다. 하보나에서는 물질과 영이 뚜렷하게 다른 반면, 그와 동시에 태생적으로 조화롭다. 반면에, 일곱 초우주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우주 에너지와 신성한 영 사이에 넓은 격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원형들과 영적 목적을 조화시키고 결국에는 통합하는 것에 마음 활동을 위한 더 큰 체험적 잠재가 있다. 공간의 시간-진화 우주들에서는 더 큰 신성 감소, 해결되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그것들의 해결에 있어서 체험을 획득할 수 있는 더 큰 기회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 초우주의 상황은—심지어는 최극자 신(神)에 이르기까지—창조체와 창조자에게 조화우주 체험의 가능성이 똑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진화적 체험의 더 큰 경기장이 된다.

116:6.8 (1276.1) 절대 차원들에서 실존적인 영의 통치가, 유한 차원들과 일곱 초우주들에서는 진화적 체험이 된다. 그리고 이 체험은 필사 사람으로부터 최극존재에 이르기까지 모두에 의해 똑같이 공유된다. 성취에 모두가 분투하고, 개인적으로 분투한다; 운명에 모두가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참여한다.

제 7 장. 대우주의 살아있는 유기체

116:7.1 (1276.2) 대우주는 물리적 장엄의 물질적 창조, 영의 극치, 지성적 장대함뿐만 아니라, 그것은 장엄하고도 반응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활기찬 조화우주의 광대한 창조의 기능구조에 두루 실재적 생명의 맥박이 뛰고 있다. 우주들의 물리적 실체는 전능 최극자의 감지 가능한 실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리적이고 살아있는 유기체는 지적 순환회로에 의해 간파된다, 그것은 마치 인간 몸체에 신경 감각 경로들의 망이 퍼져 있는 것과 흡사하다. 이 물리적 우주는 물질적 창조를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에너지 통로들이 퍼져있다, 그것은 마치 인간 몸체가 음식물의 흡수 가능한 에너지 생성물들의 순환 공급계통을 통하여 영양분이 공급되고 에너지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광대한 우주가 인간 기능구조의

복잡한 화학-통제 체계에 비교될만한 장대한 전반적-통제의 그러한 조화-협동하는 중심부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단지 힘 중심의 몸체에 관하여 조금만 아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대비로서 물리적 우주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너희에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116:7.2 (1276.3) 필사자들이 태양 에너지를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만큼, 대우주는 물질적 활동들과 공간의 조화우주 행동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파라다이스 아래쪽으로부터 솟아나는 끊임없는 에너지들에게 의존한다.

116:7.3 (1276.4) 마음이 필사자에게 주어져 있으며, 그 곳에서 그것으로 필사자가 정체성과 개인성의 자아-의식이 되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마음—심지어 최극 마음까지—은, 유한한 것의 전체성, 곧 그 곳에서 조화우주의 이 창발 하는 개인성의 영이 언제까지나 에너지-물질의 지배를 위하여 분투하는, 그 전체성 위에 증여되어 있다.

116:7.4 (1276.5) 필사 사람은, 대우주가 영원한 아들의 멀리 퍼지는 영-중력 지배, 시간과 공간의 유한한 조화우주의 모든 창조계의 영원한 영적 가치들에 대한 우주의 초물질적 응집에 응답하는 것처럼 그에 따라서 꼭 그렇게, 영 인도에 응답한다.

116:7.5 (1276.6) 인간 존재들은 전체이며 그리고 불멸의 우주 실체와의 영속하는 자아-정체화구현,—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와의 융합을 이룰 능력이 있다. 마찬가지로 최극자는 기원적 신(神),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절대 안정에 영속적으로 의존한다.

116:7.6 (1276.7) 파라다이스 완전을 향한 사람의 충동, 하느님-달성을 향한 그의 분투는 오직 불멸의 혼의 진화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살아있는 조화우주에서의 순수한 신성 긴장을 창조한다; 이것이 개별적 필사 창조체의 체험 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이다. 그러나 대우주의 모든 창조체들과 창조자들이 하느님-달성과 신성한 완전을 위하여 똑 같이 분투할 때, 거기에는 모든 창조체들의 진화하는 하느님, 최극존재의 영 개인과

전능의 힘의 장엄한 합성에서만 오로지 그 해결을 찾을 수 있는, 심오한 조화우주 긴장이 형성된다.

116:7.7 (1277.1) [유란시아에 잠시 머무는 막강한 메신저(使者)에 의해 후원되었음]

제 117 편 최극자 하느님

117:0.1 (1278.1) 어떤 우주 장소에서든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정도까지 우리가 실존할 수 있다, 그 정도에 따라 최극자의 전능의 잠재는 한 단계 더 실재적이 된다. 하느님의 뜻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목적이며, 그것은 세 절대자들에서 잠재적이 되고, 영원한 아들에서 개인성구현되며, 무한한 영에서 우주 활동을 위해 결합되고, 파라다이스의 영속하는 원형틀 안에서 영원으로 된다. 그리고 최극자 하느님은 하느님의 전체 뜻의 가장 높은 유한 현시활동이 된다.

117:0.2 (1278.2) 만약에 모든 대우주들이 하느님의 뜻에 따른 충만한 삶을 상대적으로 성취하게 되면, 시간-공간 창조계는 빛과 생명에 안주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전능자, 최극위 신(神) 잠재가 최극자 하느님의 신성한 개인성의 창발에서 사실적으로 될 것이다.

117:0.3

(1278.3)

진화하는 마음이 조화우주 마음의 순환회로들에게 동조되면, 진화하는 우주가 중앙우주의 원형틀을 따라서 안정된다면, 전진하는 영이 주(主) 영들의 연합된 사명활동과 접촉하게 되면, 상승하는 필사자 개인성이 내주 하는 조절자의 신성한 안내에 마침내 조율을 이루게 되면, 최극자의 실재성은 우주들에서 한 단계 더 실제화된다; 최극위의 신성은 조화우주 실현을 향하여 한 발짝 더 나아간다.

117:0.4 (1278.4)

대우주의 부분들과 개별존재들은 최극자의 전체 진화의 반영으로서 진화하며, 반면에 역으로 최극자는 모든 대우주 진화의 종합적인 누적 합계이다. 필사자의 견해에서 그 둘 모두는 진화적이고 체험적인 상호작용이다.

제 1 장. 최극존재의 본성

117:1.1 (1278.5)

최극자는 아름다운 물리적 조화, 지적 의미를 갖는 진리, 그리고 영적 가치의 선(善)함이다. 그는 참된 성공의 감미로움과 영속하는 성취의 기쁨이다. 그는 대우주의 대혼(大魂)이고, 유한 조화우주의 의식(意識)이며, 유한 실체의 완성이고, 창조자-창조체

체험의 개인화구현이다. 모든 미래 영원에 두루, 최극자는 신(神)의 삼위일체 관계들에서 의지적인 체험의 실체를 표현할 것이다.

117:1.2 (1278.6) 최극 창조자들의 개인들로서 하느님들은 파라다이스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권역으로 하강하였으며, 그곳에서 아버지를 찾아 파라다이스로 상승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달성 능력을 가진 창조체들을 창조하고 진화시켰다. 하느님을 계시하며-하강하는 창조자들과, 하느님을 찾으면서 상승하는 창조체들의 이 우주 행렬은 최극자의 신(神) 진화에 대한 계시이며, 그에서 하강자들과 상승자들 둘 모두의 납득에서의 상호 관계, 영원한 우주적 형제신분의 발견을 성취한다. 그래서 최극존재는 완전한-창조자의 원인과 완전해지는-창조체의 응답의 체험의 유한한 합성이 되어간다.

117:1.3 (1279.1) 대우주는 완성된 통일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고 그것을 영원히 추구하며, 이것은 이 조화우주 실존이 분별불가적 합일인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창조적 활동과 힘의 명령 결과라는 사실로부터 비롯된다. 바로 이 이들 삼위일체로서의 합일이 최극자에서 유한한 조화우주에게

표현되었으며, 그의 실체는 우주들이 삼위일체 정체화구현의 최대 차원을 달성함에 따라 점점 더 분명하게 된다.

117:1.4 (1279.2) 창조자의 뜻과 창조체의 뜻은 질적으로는 다르다; 그러나 체험적으로는 동족이다, 왜냐하면 우주 완전의 성취에서 창조체와 창조자가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느님과 연락하여 일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영원한 최종자를 공동창조 한다. 하느님은, 그렇게 하여 창조체 체험의 최극위를 성취하는, 그의 아들들의 육신화에서 인간성으로 일할 수도 있다.

117:1.5 (1279.3) 최극존재에서, 창조자와 창조체는 그의 뜻이 하나의 신성한 개인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신(神) 속에 연합되어 있다. 그리고 최극자의 이 뜻은 창조체 또는 창조자의 뜻 이상의 어떤 것인데, 그것은 마치 네바돈의 주(主) 아들의 주권적인 뜻이 현재 신성과 인간성의 뜻이 합쳐진 것 이상의 어떤 것인 것과 같다. 파라다이스 완전과 시간-공간 체험의 연합은 실체의 신(神) 차원들에 새로운 의미 가치를 낳는다.

117:1.6 (1279.4) 최극자의 진화하는 신성한 본성은 대우주에서 모든 창조체들과 모든 창조자들의 비길 데 없는 체험에 대한 신뢰에 찬 묘사가 된다. 최극자에서, 창조자-신분과 창조체-신분은 일치한다; 그들은 그것이 미완성의 족쇄들로부터 완전과 해방을 찾아 영원한 길을 추구함에 따라서 모든 유한 창조를 에워싼 여러 가지의 문제들의 해결에 따라 수반되는 변천들에서 발생하는 그 체험에 의해 언제까지나 연합된다.

117:1.7 (1279.5) 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은 영의 사명활동, 파라다이스의 장엄함, 아들의 자비 그리고 최극자의 체험에서 서로 관련된다. 최극자 하느님은 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이다, 왜냐하면 신성의 이 개념들은 관념화의 체험에 대한 유한의 최대치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신성의 이 삼원적 본질특성들의 영원한 근원들은 초(超)유한 차원들 위에 있지만, 창조체는 초(超)진리와 초(超)아름다움 그리고 초(超)선함으로써 그러한 근원들을 상상할 수 있을 뿐이다.

117:1.8 (1279.6) 창조자 미가엘은 이 세상의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창조자 아버지의 신성한 사랑을 계시하였다. 그리고 이

신성한 애정이 발견되고 받아들여짐으로, 사람들은 그들의 육신 형제들에게도 이 사랑이 계시되기를 열망할 수 있다. 그러한 창조체의 애정은 최극자의 사랑에 대한 참된 반영이다.

117:1.9 (1279.7) 최극자는 대칭적으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위대한 세 절대자들에서 잠재이다, 파라다이스에서, 아들에서 그리고 영에서 실재적이다; 그러나 최극자는 실재적인 동시에 잠재적이다, 창조체의 노력과 창조자의 목적에 똑같이 응답하는, 개인적 최극위와 전능의 힘의 존재이다; 우주에서 자아-행동하는 그리고 우주의 전체 총합에 자아-반응적이다; 최극 창조자인 동시에 최극 창조체다. 최극위의 신(神)은 전체 유한의 전체 총합을 그렇게 나타낸다.

제 2 장. 진화적 성장의 근원

117:2.1 (1280.1) 최극자는 시간의 하느님이다; 시간에서의 창조체 성장의 비결은 그의 것이다; 미완성의 현재의 정복과 완성되는 미래의 성취 역시 그의 것이다. 그리고 모든 유한한 성장의 최종적 결실은: 통합하면서 창조적인 개인성 현존의 덕분으로 영에 의해 마음을 통하여

통제되는 힘이다. 이 모든 성장의 정점에 다다르는 결과는
최극존재이다.

117:2.2 (1280.2) 필사 사람에게, 실존은 성장과 같다. 그리고 보다
큰 우주 관점에서도 정말로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영의 인도를 받는 실존은—신분의 증강—체험적 성장의
결과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우리는 현재의
우주 시대에 창조체 실존을 특징짓는 현재의 성장이
최극자의 기능이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
이러한 종류의 성장이 최극자가 성장하는 그 시대에
독특한 점이라는 것과, 최극자의 성장이 완성되면 그것이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똑같이 생각해 왔다.

117:2.3 (1280.3)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의 지위를 생각해
보라: 그들은 현재 우주 시대 속에 태어나 살고 있다;
그들은 마음과 영 자질들과 함께 개인성들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체험들과 그에 대해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상승자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믿고 납득하기로는, 이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은 현재 우주 시대 안에 있는 반면, 실제로 다음 우주
시대—최극자의 성장 완성 다음에 있을 시대—에 속한다.

따라서 그들은 미완성과 결과적인 성장의 현재 지위로서 최극자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우주 시대의 체험적 성장에 참여하지 않고, 다음 우주 시대를 위하여 남겨져 있다.

117:2.4 (1280.4) 나 자신의 계층인 막강한 메신저들은, 삼위일체를 포용하고 있는, 현재 우주 시대의 성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사실로는 삼위일체 고정아들들처럼 지위에서는 앞선 우주 시대에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들의 지위가 삼위일체의 포용으로 고정되어 있고, 체험이 더 이상 성장으로 결국 생겨나지 않는다.

117:2.5 (1280.5) 이것은 최극자의 성장 과정에 참여하는 진화적이고 체험적인 계층들의 어떤 것들이나, 최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파라다이스 달성과 최종자 지위를 열망하면서 유란시아에 현재 살고 있는 너희 필사자들은, 그러한 운명은 오직 너희가 최극자 안에 그리고 그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 하다는 것을 납득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최극자의 성장의 주기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117:2.6 (1280.6) 최극자의 성장은 언젠가 끝나게 될 것이다; 그의 지위가 (에너지-영 개념에서) 완성될 것이다. 최극자의 진화의 종료는 최극위의 일부분으로서의 창조체 진화의 끝도 보게 될 것이다. 성장의 어떤 종류가 외부 공간의 우주들을 특징지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일곱 초우주의 진화하는 현재 시대에 보이는 모든 것과 매우 다른 어떤 것이 되리라는 것을 매우 확신하고 있다. 최극위 성장에 참여하지 못한 박탈에 대하여 외부 공간자들을 보상하는 것이 대우주의 진화적 시민들의 기능이라는 것임이 분명하다.

117:2.7 (1280.7) 현재의 우주 시대의 더할 나위 없는 경지에 실존하면서, 최극존재는 대우주에서 체험적 주권자로서 기능할 것이다.—다음 우주 시대의 시민들—외부-공간자들은, 후기-초우주시대의 성장 잠재, 전능 최극자의 주권을 전제로 하는 진화적 달성을 위한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현재 우주 시대의 힘-개인성 합성에서의 창조체로서의 참여가 제외되고 있다.

117:2.8 (1281.1) 그래서 최극자의 미완성을 이루고 있음은 덕목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재 제시되어 있는

우주들의 창조체-창조의 진화적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어있음은 그 자체로서 덕목을 이룬다, 왜냐하면 그것은 체험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17:2.9 (1281.2) 유한한 철학에서 가장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 중의 하나는 다음과 같다: 대우주의 진화에 응하여 최극존재가 실재화하는 것인가, 아니면 최극자의 점진적인 실재화구현에 응하여 유한한 이 조화우주가 점차적으로 진화하는가? 아니면 그들이 자신들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간에 의존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들이 진화적인 상호 작용, 각자가 상대방의 성장을 촉진하는가?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창조체들과 우주들은, 높든지 낮든지, 최극자 안에서 진화하며, 그들이 진화함에 따라 이 우주 시대의 전체적인 유한적 활동의 통합된 합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개인성들에 대한 최극자 하느님의 전능한 힘의 진화, 최극존재의 출현이다.

제 3 장. 우주 창조체에 대한 최극자의 의의(意義)

117:3.1 (1281.3) 최극존재, 최극자 하느님, 전능 최극자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된 조화우주 실체는 모든 유한 실체들의 창발 하는 위상들에 대한 복잡하고도 우주적인 합성이다. 영원한 에너지, 신성한 영 그리고 우주 마음의 멀리 펼쳐진 분화는 최극자의 진화에서 유한한 정점을 달성하며, 그 최극자는 유한한 모든 성장의 전체 총합, 유한한 최대 완성의 신(神) 차원에서의 자아-실현이다.

117:3.2 (1281.4) 최극자는 공간의 은하계 파노라마 속으로 구체화되는 삼극일체들의 창조적 무한성이 그것을 통하여 흐르는 신성한 통로이며, 시간의 장엄한 개인성 드라마: 마음의 중재를 통한 에너지-물질에 대한 영의 정복이 그것에 반하여 일어난다.

117:3.3 (1281.5) 예수는 말씀하였다: “나는 살아있는 길”이라고 하였으며, 그렇게 그는 자아-의식의 물질적 차원으로부터 하느님-의식의 영적 차원에 이르는 살아있는 길이다. 그리고 그가 자아로부터 하느님에게 이르는 살아있는 상승의 길인 것과 같이, 최극자는 유한한 의식으로부터 의식의 초월에 이르는 그리고 심지어는 아(亞)절대성의 통찰에 이르는 살아있는 길이다.

117:3.4 (1281.6) 너희의 창조자 아들은 인간성으로부터 신성에 이르는 그러한 살아있는 실재적인 경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요셉의 아들 여호수아, 사람의 아들의 진정한 인간성으로부터 네바돈의 미가엘, 무한한 하느님의 아들의 파라다이스 신성을 향한 진보의, 이 우주 경로 횡단의 완성을 직접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유사하게 최극존재는 유한한 제약들의 초월을 향한 우주적 접근으로 기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창조체 진화, 진보 그리고 영성화 달성의 실재적 구현이며 개인적 본보기이기 때문이다. 파라다이스로부터 하강하는 개인성들의 대우주 체험들조차도 시간의 순례자들의 상승 체험들에 대한 그의 총합을 보완하는 그의 체험의 부분들이다.

117:3.5 (1281.7) 필사 사람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상징적으로 만들어진 것 이상(以上)이다. 물질적인 입장에서, 이 말은 거의 진실이 아니지만, 특정한 우주적 잠재성에 대하여서는 이것은 실재적인 사실이다. 인간 종족에서, 진화적 달성의 동일한 드라마의 어떤 것이, 광대하게 더 큰 크기로 우주들의 우주에서 일어나는 대로, 펼쳐진다. 의지적 개인성인 사람은 최극자의 유한 잠재성의

현존으로 미(未)개인적 실존개체인 조절자와 연락하여 창조적 존재가 되며, 그 결과는 불멸의 혼이 꽃피는 것이다. 우주들에서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 개인성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미(未)개인적 영과 연락하여 기능하며 그로 인하여 신(神) 실체의 새로운 힘 잠재를 갖는 창조적이 된다.

117:3.6 (1282.1) 창조체로서의 필사 사람은 신(神)인 최극존재와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사람의 진화는 어떤 면들에서는 최극자의 성장과 비슷하다. 사람의 자기 자신의 결정들에 대한 강한 힘과 능력 그리고 일관성에 의해 물질적인 상태에서 영적 상태를 향해 의식적으로 성장한다; 또한 그는 그의 생각 조절자가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내려뻗치면서 모론시아적 혼 차원들에 닿는 새로운 기법을 발전시킴에 따라 성장하기도 한다; 혼이 일단 존재하게 되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리고 저절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117:3.7 (1282.2) 이것은 최극존재가 확대하는 방법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 그의 주권은 최극 창조자 개인성들의 행위들과 성취들 안에서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성장한다; 그것은

대우주의 통치자로서의 그의 힘이 지닌 장엄성의 진화이다. 그의 신(神) 본성은 마찬가지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이전-실존의 합일체에 달려있다. 그러나 최극자 하느님의 진화에 다른 측면이 여전히 실존한다: 그는 창조자에서-진화되고 삼위일체에서-유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자아-진화되고 자아-유래되었다. 최극자 하느님은 그 자신의 신(神) 실재화구현에서 의지적, 창조적인 참여자인 자기 자신이다. 인간의 모론시아 혼도 그 자신의 불멸화 달성에서 마찬가지로 의지적, 창조적인 동반자이다.

117:3.8 (1282.3) 아버지는 파라다이스의 에너지를 조종함에 있어서 그리고 최극자에게 이들 반응을 되돌려 내어놓는 것에서 공동 행위자와 협력한다. 아버지는 최극자의 주권으로 그의 행위들이 언젠가 정점에 다다르게 될 창조자 개인성들의 생산에서 영원한 아들과 협력한다. 아버지는 최극자의 완성된 진화가 그 주권을 그가 가지도록 인정하는 그러한 시기까지 대우주의 통치자들로서 기능하는 삼위일체 개인성들의 창조에서 아들과 영 둘 모두와 협력한다. 아버지는 최극위의 진화의 촉진에 있어서, 자신의 신(神)과 신(神)-아닌 협력자들과

이것들과 그리고 여러 다른 방법들로서 조화-협동한다, 그러나 그 역시 이러한 문제들에서 홀로 기능한다. 그리고 그의 독자적 기능은 생각 조절자들과 그들의 연관된 실존개체들의 사명활동에서 가장 잘 계시될 것이다.

117:3.9 (1282.4) 신(神)은 합일체이다, 삼위일체에서는 실존적이고 최극자에서는 체험적이며 그리고 필사자들에서는 조절자 융합으로의 창조체-실현화이다. 필사 사람에 있는 생각 조절자들의 현존은 우주의 본질적 합일을 나타내는데, 왜냐하면 그리하여 사람, 곧 우주 개인성의 가능한 가장 저급 유형이, 가장 높고 그리고 영원한 실체의, 나아가 모든 개인성들의 근원적인 아버지의 실재적 단편을 그 자신 속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117:3.10 (1282.5) 최극존재는 그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 연락함으로써 그리고 그 삼위일체의 창조자 및 행정-관리자 자녀들의 신성 성취의 결과로 진화한다. 사람의 불멸 혼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신성한 현존과의 관계적-연합으로 그리고 인간 마음의 개인성 결정들에 따라서 그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진화한다. 삼위일체와 최극자
하느님의 관계는 조절자와 진화하는 사람의 관계와 같다.

117:3.11 (1282.6) 현재의 우주 시대 동안 시간과 공간의 창조적
대리자들에 의해 행동의 유한한 가능성들이 소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극존재가 창조자로서 직접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겉보기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주의 먼
역사에서는 이것이 오직 한 번만 일어났다; 우주 반영성의
문제에서 유한 행동의 가능성들이 모두 소모되었을 때,
그때는 최극자가 모든 선행하는 창조자 활동들의 창조적
완성자로서 기능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선행하는
창조자신분이 창조적 활동의 주어진 주기를 완료하게 될
때는 그가 언제든지 미래의 어느 시대에 완성자로서 다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117:3.12 (1283.1) 최극존재가 사람을 창조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은 사실상 최극자의 잠재성에서 창조되었고 바로
그의 생명은 그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 그가 사람을
진화시키지는 않지만; 진화의 본질 자체가 바로 최극자
자신이다. 유한한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실재적으로

살아있고 움직이며 최극자의 내재성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소유한다.

117:3.13 (1283.2) 최극자는 기원적인 원인성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모든 우주 성장을 촉진시키는 존재로 나타나며 모든 체험적-진화적 존재들의 운명으로 여겨지는 전체성 정점을 제공하도록 운명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가 유한 조화우주에 대한 개념을 창설하시고; 창조자 아들들은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창조 영들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 이 관념을 사실화한다; 최극자는 전체 유한 세계를 최고점에 이르게 하고 그것이 아(亞)절대 세계의 운명과 갖는 관계를 확립한다.

제 4 장. 유한한 하느님

117:4.1 (1283.3) 우리가 존재의 지위와 신성의 완성을 위하여 창조체 창조의 끊임없는 투쟁들을 고찰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끝없는 노력이 신성한 자아-실현을 위하여 최극자의 끊임없는 투쟁을 나타낸다고 믿지 않을 수 없다. 최극자 하느님은 유한한 신(神)이며, 그는 단어 그대로의 전체 감각으로 유한의 문제들과 맞설 수밖에 없다. 공간의 진화 안에서 시간의 변천과 벌리는 우리들의 투쟁은, 그의

진화하는 본성이 가능성에서의 가장 바깥 한계까지 확대 중에 있는 활동의 구체 내에서, 주권의 완성과 자아의 실체를 성취하려는 그의 노력들에 대한 반영이다.

117:4.2 (1283.4) 최극자는 대우주에 두루 나타나기 위해 투쟁한다. 그의 신성한 진화는 실존하는 모든 개인성의 지혜-행동에 어느 정도 입각하고 있다. 인간 존재가 영원한 생존을 선택할 때, 그는 운명을 공동으로-창조하고 있는 것이며, 상승하는 이 필사자의 삶 속에서 유한의 하느님은 증가된 양의 개인성 자아-실현과 체험적 주권의 확대를 얻는다. 그러나 만약에 창조체가 영원한 생애를 거부하면, 이 창조체의 선택에 의존되어 있었던 최극자의 그 부분은 불가항력적인 지연, 대리적인 또는 평행하는 체험에 의해 보상되어야만 하는 결핍을 체험한다; 생존을 받지 못하는 개인성의 경우에는 그것이 창조의 대혼(大魂) 속으로 흡수되어 최극자 신(神)의 일부분이 된다.

117:4.3 (1283.5) 하느님은 너무나 신뢰가 깊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자신의 신성한 본성의 일부분을 심지어 인간 존재들의 손안에 주어 주셔서 보관하게 하고 자아-실현을 이루게 하신다. 아버지의 본성, 조절자 현존은 필사 존재의

선택에 상관없이 불멸이다. 최극자의 자녀, 진화하는 자아는 잘못 인도된 그러한 자아의 잠재적으로 통합되는 개인성이 최극위의 신(神)의 한 요소로서 존속되게 됨에도 불구하고 파괴될 수 있다.

117:4.4 (1283.6) 인간적 개인성은 창조체 신분의 개별존재성을 정말로 파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화우주 자멸의 삶 속에서 가치가 있었던 모든 것들이 존속되게 된다 하더라도, 이들 본질특성은 하나의 개별적인 창조체로서는 존속되지 않을 것이다. 최극자는 우주들의 창조체들 안에 다시 나타날 것이지만, 그러한 특정한 개인으로는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상승하지 않는 존재의 독특한 개인성은 바다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처럼 최극자에게로 돌아간다.

117:4.5 (1284.1) 유한 세계의 개인적 부분들 중에서 분리된 어떤 행동이라도 최극 총체자의 생겨나는 출현과는 비교적 관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는 다양한 부분들의 전체 행위들에 의존한다. 개별 필사자의 개인성은 최극위 전체 앞에서는 하찮은 것이지만, 각각의 인간 존재의 개인성은 유한 세계 속에서 대체될 수 없는

의미-가치를 나타낸다; 개인성은, 일단 나타난 후에는, 살아있는 그 개인성의 계속적인 실존 안에서를 제외하고는, 동등한 표현을 결코 다시 찾아낼 수 없다..

117:4.6 (1284.2) 그리하여, 우리가 자아-표현을 위하여 분투할 때, 최극자는 우리들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신(神) 표현을 위해 분투한다. 우리가 아버지를 찾듯이, 최극자는 모든 물체들의 파라다이스 창조자를 다시 발견하였다. 우리가 자아-실현의 문제들을 정복하듯이, 체험의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 안에서 전능 최극위를 성취하고 있다.

117:4.7 (1284.3) 인류는 우주 안에서 노력하지 않고는 상승하지 못하며, 뿐만 아니라 최극자도 의도적이고 지능적인 행동 없이는 진화하지 않는다. 창조체들은 단순한 수동성만을 가지고는 완전성을 달성할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최극위의 영은 유한 창조에 대한 끊임없는 봉사 사명활동이 없이는 전능자의 힘을 사실화 시키지 못한다.

117:4.8 (1284.4) 최극자에 대한 사람의 현세적 관계는 조화우주 도덕성, 의무에 대한 우주적 민감성과 용납이다. 이것은 상대적인 옳고 그름의 현세적 감각을 초월하는

도덕성이다; 그것은 체험적 신(神)에 대한 체험적 책무가 창조체의 자아-의식 이해에 직접적으로 입각하는 도덕성이다. 필사 사람과 다른 모든 유한 창조체들은 최극자 속에 실존하는 에너지와 마음과 영의 살아있는 잠재로부터 창조된다. 조절자-필사자 상승자가 최종자의 불멸성과 신성한 성격의 창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최극자에게 달려 있다. 그 조절자가 인간 의지의 동의에 따라 하느님의 상승하는 아들의 영원한 본성에 대한 원형틀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최극자의 바로 그 실체로부터이다.

117:4.9 (1284.5) 인간 개인성의 영성화와 영존화에 있어서의 조절자 진보의 진화는 최극자의 주권의 확대에 대한 직접적 산물이다. 인간적 진화에 있어서의 그러한 성취들은 그와 동시에 최극자의 진화적 실재화구현에 있어서의 성취이기도 하다. 최극자 없이는 창조체들이 진화할 수 없다는 것이 참말이지만 한편, 최극자의 진화가, 모든 창조체들의 완성된 진화와 독립하여서는, 결코 충분하게 달성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아마 참말일 것이다. 자아-의식 개인성들의 위대한 조화우주 책임이 여기에 들어 있다. 그 최극자 신(神)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사자

의지의 선택에 의존한다. 그리고 창조체 진화와 최극자 진화의 둘 모두의 상호적 진보는 우주적 반영성의 불가해한 기능구조 위에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게로 신실하고도 충만하게 가리키며 표현되고 있다.

117:4.10 (1284.6) 필사 사람에게 주어진 큰 도전은 이렇다: 체험할 수 있는 조화우주의 가치 의미들을 너희들 자신의 진화하는 자아신분 속으로 개인성구현시키겠다는 결정을 너희가 하겠는가? 아니면 생존을 거부함으로써, 유한한 하느님의 진화에 대한 창조체 공헌을 그의 방법으로 시도하려는 어떤 다른 시대의 다른 창조체의 행동을 기다리면서, 최극위의 이 비밀들이 잠을 자고 있도록 너희가 허용하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최극자에 대한 그의 공헌이 될 것이며, 너희의 것이 아니다.

117:4.11 (1284.7) 이 우주 시대의 큰 투쟁은 잠재적인 것들과 실재적인 것들—아직 나타나지 않은 모든 것들에 의해 실재화구현되기를 추구함—사이에 있다. 만약에 필사 사람이 파라다이스 탐험에 착수하였다면, 그는 영원의 넷물 속에 있는 물결처럼 흐르는 시간 작용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필사 사람이 영원한 생애를 거부하면,

그는 유한한 우주들 안에서 사건들의 흐름에 역행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기계적인 창조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계시된 목적에 따라 냉혹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의지적인 창조는 영원의 탐험에 개인성이 참여하는 배역(配役)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 필사 사람은 인간 실존의 최극 가치들을 파괴할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의 개인적 체험 속에서 이 가치들의 진화를 아주 명확하게 방해할 수 있다. 파라다이스 상승에 참여하는 것을 인간 자아가 그렇게 거부하는 범위까지, 바로 그 정도까지 최극자는 대우주에서 신성 표현의 성취가 연기된다.

117:4.12 (1285.1) 필사 사람의 관리 영역 속으로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조절자 현존뿐만 아니라 최극자의 미래에 있어서의 미세한 단편의 운명에 대한 통제 역시 주어졌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간의 운명을 달성하듯이 최극자는 신(神) 차원들의 운명을 성취하기 때문이다.

117:4.13 (1285.2) 그리하여 그 결정은 그것이 우리들 각자를 한 때 기다렸듯이 너희들 각자를 기다린다: 너희는 유한한 마음의 결정들에 그토록 의존하는 시간의 하느님을

실망시킬 것인가? 너희는 동물적인 퇴보의 나태함으로
인하여 우주들의 최극자 개인성을 실망시킬 것인가?
너희는 각각의 창조체에게 그토록 의존적인, 모든
창조체들의 대형(大兄)을 실망시킬 것인가? 너희는 우주
생애의 매혹적인 광경—최극위의 하느님을 찾음에 있어서
그리고 그의 진화에 있어서의 신성한 참여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신성한 발견—이 너희 앞에 펼쳐질 때 실현되지
않은 영역 속으로 너희가 지나가도록 허용할 수 있겠는가?

117:4,14 (1285,3) 하느님의 선물들—그가 증여하는 실체—은 그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것들이 아니며; 그는 그
자신으로부터 창조를 분리하지 않지만, 파라다이스를
도는 창조체들 속에 긴장을 설립하였다. 하느님은 먼저
사람을 사랑하였고 그에게 불멸성—영원한 실체—의
잠재를 그에게 수여한다. 그리고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하면 사람은 실재성에서 영원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신비함이 있다. 사람이 사랑을 통하여 하느님께
가까이 접근할수록, 그 사람의 실체—실재성—는 점점 더
커진다.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는
비(非)실체—실존에서의 중지—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자신의 의지를

제공하게 되면, 사람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느님께
제공하게 되면, 하느님은 그 사람을 현재보다 더욱 낮게
만든다.

제 5 장. 창조의 대혼(大魂)

117:5.1 (1285.4) 위대한 최극자는 대우주의 조화우주
대혼(大魂)이다. 그의 안에서 조화우주의 본질특성과
양(量)은 그들의 신(神) 반영을 발견한다; 그의 신(神)
본성은 진화하는 우주들 전체에 걸친 모든 창조체-창조자
본성의 전체 광대함의 모자이크 식 합성물이다. 그리고
최극자는 진화하는 우주 목적을 포용하는 창조적 의지를
체현하는 실재화하는 신(神)이기도 하다.

117:5.2 (1285.5) 지적인, 유한 세계의 잠재적으로 개인적인
자아들은 셋째근원이며 중심으로부터 창발하며 최극자
안에서 유한한 시간-공간 신(神) 합성을 성취한다.
창조체가 창조자의 뜻에 따를 때, 그는 자신의 개인성을
덮거나 굴복시키지 않는다; 유한한 하느님의
실재화구현에 있어서 개별 개인성 참여자들은 그러한
활동에 의해서 자신들의 의지적 자아신분을 잃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개인성들은 오히려 이 위대한 신(神)

탐험에 참여함으로써 진보적으로 증강된다; 신성과의 그러한 연합에 의하여 사람은 자신의 진화하는 자아를 최극위의 바로 입구까지 고양시키고 부유하게 하며 영성화시키고 통합시킨다.

117:5.3 (1286.1) 사람의 진화하는 불멸의 혼, 물질적 마음과 조절자의 공동 창조는 파라다이스에 이르는 그러한 존재로 상승하며 그 후에, 최종의 무리단 속으로 모집되었을 때, 최종자 초월이라고 알려진 체험의 기법에 의해 영원한 아들의 영-중력 순환회로와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결연을 맺게 된다. 그렇게 하여 그러한 최종자는 최극자 하느님의 개인성들로서 체험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받아들여질 수 있는 후보자들이 된다. 그리고 이 필사자 지능체들이 최종의 무리단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임무에 있어서 영 실존의 7번째 단계를 달성하게 될 때, 그러한 이원적(二元的) 마음들은 삼원일체적이 될 것이다.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의 조화된 이 두 마음들은 그 때 실재화된 최극존재의 체험적 마음과의 연합 속에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117:5.4 (1286.2) 영원한 미래에, 최극자 하느님이 영성화된 마음, 상승자 사람의 불멸의 혼 속에서 실재화될 것인데—창조적으로 표현하고 영적으로 그려진다.—그것은 우주 아버지가 예수의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117:5.5 (1286.3) 사람은 최극자와 연합하지 않으며 그의 개인적 정체성 속에 잠기지 않지만, 모든 사람의 체험에 대한 우주적 반향은 최극자 신성한 체험화의 한 부분으로부터 그렇게 한다. “행동은 우리들의 것이지만, 결과는 하느님의 것이다.”

117:5.6 (1286.4) 진보하는 개인성은 그것이 우주들의 상승하는 차원들을 통하여 지나갈 때 실재화된 실체의 흔적을 남긴다. 그들이 마음이나 영 또는 에너지라 하더라도, 시간과 공간의 확장되는 창조계는 그들의 권역을 두루 거치는 개인성의 진보에 의해 변경된다. 사람이 작용할 때 최극자는 반작용하며 이러한 활동이 진보라는 사실을 구성한다.

117:5.7 (1286.5) 에너지와 마음과 영이라는 거대한 순환회로들은 결코 상승하는 개인성들의 영구적인 소유물들이 될 수

없다; 이들 사명활동은 최극위의 일부분으로 언제까지나 남아 있다. 필사자 체험에 있어서 인간 지능은 보조 마음-영들의 율동적인 파동 속에 들어 있으며 이 사명활동 안에서 순회함으로써 생성된 그 경기장 안에서 그것이 결정하는 것들에게 영향을 준다. 필사자가 죽음에 처하게 될 때 인간 자아는 그 보조 순환회로부터 영구적으로 이탈된다. 이 보조 장치들이 한 개인성으로부터 다른 개인성으로 전환되는 일이 결코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그들은 결정-행동의 미(未)개인적 반향들을 칠중 하느님을 통하여 최극자 하느님에게로 전환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이것은 적어도 경배와 지혜 보조자들의 경우에는 맞는 말이다.)

117:5.8 (1286.6) 그리고 그것은 영적 순환회로에도 그러하다: 사람은 우주들을 통하여 자신이 상승함에 있어서 이것들을 활용하지만, 그것들을 자신의 영원한 개인성의 한 부분으로서는 결코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나 영적인 사명활동의 이 순환회로들은, 진리의 영이나 성령 또는 초우주 영 현존들이거나에 상관없이, 상승하는 개인성 안에서 창발하는 가치들을 수용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으며, 이 가치들은 칠중 하느님을 통하여 최극자에게 확실하게 전달되고 있다.

117:5.9 (1286.7) 성령과 진리의 영으로서의 그러한 영적인 영향들이 지역우주의 업무들인 반면, 그들의 안내는 주어진 하나의 지역 창조라는 지리적 제한에 온통 속박되지는 않는다. 상승하는 필사자가, 자신이 기원된 지역우주의 한계를 넘어서서 지나가게 될 때, 그는 물질세계들과 모론시아 세계들의 철학적인 미로들을 통과하면서 자신을 그토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안내해 온 진리의 영의 사명활동을 전적으로 잃어버리지는 않는데, 상승하면서 맞이하는 모든 위기 때마다 파라다이스 순례자를 확실하게 지도하면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것이 그 길이다.” 너희가 지역우주의 권역을 떠나게 될 때, 너희는 창발하는 최극존재의 영의 사명활동을 통하여 그리고 초우주 반영성이라는 저장물들을 통하여, 파라다이스에서 증여된 하느님의 아들들의 위안을 주는 지도적 영에 의해 너희의 파라다이스 상승 여정에서 계속 안내를 받게 될 것이다.

117:5.10 (1287.1) 우주 사명활동에 대한 이러한 여러 겹의 순환회로들이 최극자 안에서 진화적 체험의 의미들과 가치들 그리고 사실들을 어떻게 등록하고 있을까? 우리는 정확하게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이 순환회로들에게 즉각적으로 증여된 존재들이 파라다이스에서 기원된 최극 창조자들의 개인들을 통하여 이 등록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지능체의 물리적 차원에 대한 그들의 사명활동에 있어서, 일곱 보조 마음-영들의 마음-체험 축적물들은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지역우주 체험의 일부분이며, 이 창조 영을 통하여 그들은 최극위의 마음속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영과 성령과의 필사자 체험들은 최극위의 개인 안에 비슷한 기법들에 의해 등록되는 것으로 보인다.

117:5.11 (1287.2) 사람과 조절자의 체험조차도 최극자 하느님의 신성 속에서 공명(共鳴)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조절자들이 체험을 하게 될 때 그들은 최극자와 비슷하며, 필사 사람의 진화하는 혼은 최극자 안에서의 그러한 체험을 위하여 이미-실존하는 선제적 가능성으로부터 창출되기 때문이다.

117:5.12 (1287.3)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창조의 다양한 체험들은 최극위의 진화의 일부분이 된다. 창조체들은 자신들이 아버지께로 상승할 때 유한 세계의 본질특성과 양(量)을 활용한다; 그렇게 이용하는 미(未)개인적 영향들은 살아있는 조화우주, 최극자 개인의 일부분으로 언제까지나 남아 있다.

117:5.13 (1287.4) 사람 자신이 개인성 소유로서 자기와 함께 간직하고 있는 그것은, 그의 파라다이스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대우주의 마음 그리고 영 순환회로들을 이용해 온 체험의 성격 결과들이다. 사람이 결정을 내릴 때, 그리고 그가 이 결정을 행동 속에서 완료할 때, 사람은 체험을 하게 되며, 이 체험의 의미들과 가치들은 유한한 것으로부터 최종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들에서 언제까지나 그의 성격의 한 부분이 된다. 조화우주적으로 도덕적이며 신성하게 영적인 성격은, 진지한 경배에 의해 조명되고, 지능적인 사랑에 의해 영화롭게 되며 형제처럼 행하는 봉사 안에서 완료되어온, 개인적 결정으로 이루어진 창조체의 자본이 되는 축적물을 나타낸다.

117:5.14 (1287.5) 진화하는 최극자는, 우주들의 우주와 접촉하는 한정된 체험보다 더욱 많은 것을 성취할 수가 없는 그들의 무능력에 대하여 언젠가는 결국에는 유한 창조체들을 보완할 것이다. 창조체들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있지만, 유한한 그들의 진화적 마음들은 무한이자 절대인 아버지를 실제로 납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창조체의 체험이 최극자 안에 그리고 그 일부분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모든 창조체들이 유한 실존의 최종적 차원에 도달하는 때에, 그리고 전체 우주 발전이 실재적인 신성 현존에 따라서 그들의 최극자 하느님 달성을 가능하게 만든 후에는, 그러면, 선천적인, 그러한 접촉의 사실 안에서, 전체 체험과 접촉한다. 시간의 유한성은 그 속에 영원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바로는, 진화의 총만함이 조화우주 성장 수용력의 소진을 증명하게 되면, 전체 유한은 궁극자로서의 아버지를 찾아 영원한 생애의 아(亞)절대 위상들을 시작할 것이다.

제 6 장. 최극자에 관한 탐구

117:6.1 (1287.6) 우리는 우주들에서 최극자를 찾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는, 움직이거나 정지된,

모든 사물들과 존재들안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신비 속에서 식별할 수 없으며, 멀리 있으면서, 가까이 있다.” 전능 최극자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의 형태, 아직 창조되지 않은 것들의 원형틀이다.” 최극자는 너희 우주의 고향이며, 너희가 그를 발견하는 때, 그것은 마치 고향에 돌아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는 너희의 체험적 부모이며, 심지어는 인간 존재들의 체험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신성한 부모신분의 체험 속에서 그는 성장해 왔다. 그가 너희를 아는 것은 그가 창조자와-같음과 마찬가지로 그는 창조체와-같음이기 때문이다.

117:6.2 (1288.1) 만약에 너희가 참으로 하느님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마음속에서 최극자의 의식이 탄생되는 것은 너희가 어쩔 수가 없다. 하느님이 너희의 신성한 아버지인 것처럼, 최극자는 너희의 신성한 어머니이다, 그 어머니 안에서 너희는 너희가 우주 창조체로서 살아가는 내내 양육되고 있다. “최극자는 얼마나 우주적인지!—그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 창조의 한정 없는 만물이 삶을 위하여 그의 현존에 의존하며, 어떤 것도 거절되지 않았다.”

117:6.3 (1288.2) 네바돈에 대한 미가엘의 관계가 유한 조화우주에 대한 최극자의 관계이다; 그의 신(神)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것을 통하여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해 흘러나가는 위대한 큰길이다, 그리고 유한 창조체들이 사랑이신 아버지를 찾아 안쪽으로 지나는 위대한 큰길이다. 심지어는 생각 조절자들도 그에게 관련되어 있다; 본질적인 본성과 신성에서 그들은 아버지와 같다, 그러나 그들이 공간의 우주들에서 시간의 사건들을 체험할 때에는, 그들은 최극자와 같아진다.

117:6.4 (1288.3) 창조자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하는 창조체의 행동은 조화우주 가치 그 자체이며 계시되지는 않았지만 편재(遍在)되어있는 조화-협동의 기세, 아마도 최극존재의 끊임없이 확대되는 활동의 기능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반응되는 우주적 의미를 갖는다.

117:6.5 (1288.4) 진화하는 필사자의 모론시아 혼은 실제로 우주 아버지의 조절자 행동의 아들이며 최극존재, 우주 어머니의 우주 반응활동의 자녀이다. 어머니의 영향은 성장하는 혼의 지역우주 자녀신분에 두루 인간 개인성을 지배한다. 신(神) 부모들의 영향은 조절자 융합 이후와

초우주 생애 동안에 더욱 동등하게 되지만, 시간의 창조체들이 영원의 중앙우주 횡단을 시작할 때, 아버지의 본성은 점점 증가하는 현시로 되어간다, 우주 아버지에 대한 인식과 최종의 무리단으로의 입장이 허용되면서 유한한 현시활동은 그 정점에 다다른다.

117:6.6 (1288.5) 최종자 달성의 체험에서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하여, 상승하는 자아의 체험적인 어머니 본질특성들은 영원한 아들의 영 현존 그리고 무한한 영의 마음 현존과의 접촉과 융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는, 대우주에서의 최종자 활동 영역에 두루, 최극자의 보이지 않는 어머니 잠재의 새로운 각성, 체험적 의미들의 새로운 실현, 그리고 전체적인 상승 생애의 체험적 가치들의 새로운 합성이 나타난다. 자아의 이러한 깨달음은 최극자의 어머니 유전성이 아버지의 조절자 유전성과의 제한적 동시성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여섯 번째 단계에 있는 최종자의 우주 생애들에서 계속될 것이다. 대우주 기능의 이 흥미로운 기간은 상승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되는 필사자의 계속적인 성숙한 생애를 나타낸다.

117:6.7 (1288.6) 실존의 여섯 번째 단계의 완성과 영 지위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풍성해지는 체험, 성숙되는 지혜 그리고 신성 실현의 진보하는 시대들이 뒤이어 일어날 것이다. 최종자의 본성에서 이것은 영 자아-실현을 위한 마음 분투의 완성된 달성, 유한한 가능성들의 한계들 안에서 상승하는 사람-본성과 신성한 조절자-본성과의 조화-협동의 완성과 동등할 것이다. 그렇게 장엄한 우주 자아는 이렇게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영원한 최종자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어머니 최극자의 영원한 우주 자녀, 창조되었거나 창조 중 이거나, 또는 진화하고 있는 만물들과 그리고 존재들에 대한 유한한 관리-행정에 관련된 그 모든 행동 또는 일에 있는 개인성들과 그리고 우주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둘 모두를 대표하도록 분별화된 우주 자아가 된다.

117:6.8 (1289.1) 혼이 진화하는 모든 인간들은 글자 그대로 아버지 하느님과 어머니 하느님, 최극존재의 진화적 아들들이다. 그러나 필사 사람이 자신의 신성한 유산에 대해 혼-의식이 되기까지는, 이러한 신(神) 동족관계의 확신은 신앙으로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간 삶 체험은 최극존재의 우주 자질과 우주 아버지의 우주 현존(그 어떤 것도 개인성은

아니다)이 시간의 모론시아 혼과 그리고 우주 운명과 영원한 봉사의 인간적이고-신성한 최종자 성격을, 그 속에서 진화시키고 있는 조화우주 누에고치이다.

117:6.9 (1289.2)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이 인간 실존에서 가장 위대한 체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망각한다. 다른 체험들은 그들의 본성과 내용에서 제한되지만, 하느님에 대한 체험은 창조체의 이해 능력 한계 외에는 어떤 제한도 없으며, 바로 이 체험은 그 스스로 능력을 확대시킨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고 있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하느님을 발견하였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이미 찾은 것이다. 하느님에 대한 탐색은, 증여되어지는 새롭고도 더욱 위대한 사랑에 대한 놀라운 발견이 수반하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의 증여이다.

117:6.10 (1289.3) 모든 참된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오고, 사람은 그 자신이 이 사랑을 자기 이웃들에게 줌으로써 신성한 애정을 받아들인다. 사랑은 역동적이다. 그것은 결코 잡아가둘 수 없다; 그것은 살아있고 자유로우며 설레게 하며 항상 움직인다. 사람은 결코 아버지의 사랑을 가져와서 그의 가슴속에 그것을 가두어 둘 수가 없다.

아버지의 사랑은 필사 사람에게 그가 차례로 이 사랑을 자기 동료들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의 개인성을 통과해 지나감으로서만 실체가 된다. 위대한 사랑의 순환회로는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아들들을 통하여 형제들에게 전해지며, 그리하여 최극자에게 도달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내주 하는 조절자의 사명활동에 의해 필사자 개인성에서 나타난다. 하느님을 아는 그러한 아들은 이 사랑을 자신의 우주 형제들에게 나타내며, 형제우애에서의 이 애정은 최극자의 사랑의 본질이다.

117:6.11 (1289.4) 체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최극자에게 접근할 수 없으며, 현재의 창조 신(新)시대에서 창조체가 최극위에 접근하는 큰길은 오직 세 개밖에 없다:

117:6.12 (1289.5) 1. 파라다이스 시민들은 영원한 섬으로부터 하보나를 통하여 하강하며, 그곳에서 그들은 파라다이스-하보나 실체 차이를 관찰함으로써 그리고 주(主) 영들로부터 창조자 아들들에 이르기까지 최극 창조자 개인성들의 다양한 활동들의 탐구적인 발견으로써 최극위 이해를 위한 능력을 취득한다.

117:6.13 (1289.6) 2. 최극 창조자들의 진화적 우주들로부터 올라오는 시간-공간 상승자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합일에 대한 증강하는 인식에 대한 예비단계로서 하보나를 통과하면서 최극자에게 가까이 접근한다.

117:6.14 (1289.7) 3. 하보나 원주민들은 파라다이스로부터 내려오는 순례자들 그리고 일곱 초우주들로부터 상승하는 순례자들과 접촉함으로써 최극자에 대한 이해를 획득한다. 하보나 원주민들은 영원한 섬의 시민들과 진화하는 우주들의 시민들의 기본에서 서로 다른 관점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선천적으로 있다.

117:6.15 (1290.1) 진화적 창조체들에게는 우주 아버지에게 도달하는 일곱 개의 위대한 방법들이 있다, 이러한 파라다이스 상승 방법들 각각은 일곱 주(主) 영들 중 하나의 신성을 통과해 지난다; 그러한 접근 각각은, 창조체가 그 주(主) 영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는 초우주에서의 봉사에 따르는 결과 위에서 일어나는, 체험 접수성의 확대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일곱 체험들의 전체 총합은 최극자 하느님의 실체와 실재성에 대한 창조체 의식의 현재-알려진 한계들을 구성한다.

117:6.16 (1290.2) 사람에게 유한의 하느님 발견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 스스로의 한계들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우주의 미완성이다; 심지어는 모든 창조체들의—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미완성이 최극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아버지 하느님은 하느님과-닭음의 신성한 차원을 달성한 어떤 개별존재에 의해서도 발견될 수 있지만, 최극자 하느님은 아주 먼 훗날에 완전의 우주적 달성을 통하여 모든 창조체들이 동시에 그를 발견하게 되기 전까지는 어떤 한 창조체에 의해서도 결코 개인적으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117:6.17 (1290.3) 이 우주 시대에는,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하게 될 것처럼, 그렇게 그를 개인적으로는 발견 할 수는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파라다이스 상승과 그에 따른 우주 생애가 모든 체험의 하느님의 우주 현존과 조화우주 활동에 대한 인식을 너희 의식 속에 점차적으로 창조할 것이다. 영의 열매들은 최극자가 인간 체험 안에서 실현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최극자의 본체이다

117:6.18 (1290.4) 사람의 최극자에 대한 언젠가의 달성은, 파라다이스 신(神)의 영과 그의 융합에서 오는 결과이다. 유란시아인 들에게 이 영은 우주 아버지의 조절자 현존이다; 그리고 신비 감시자가 아버지로부터 오고 아버지를 닮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다하더라도 신성한 선물이 무한한 하느님의 본성을 유한한 창조체에게 계시하는 불가능한 임무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조절자들이 미래의 일곱 번째 단계 최종자에게 계시하는 것은 최극자 하느님의 신성과 본성일 것이다. 그리고 무한자가 절대 존재에 대한 계시가 되는 것처럼 이 계시는 유한 창조체에 대한 것이 될 것이다.

117:6.19 (1290.5) 최극자는 무한하지 않지만, 유한 창조체가 어느 때든지 실제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무한성 전체를 포용할 것이다. 최극자보다 더 납득한다는 것은 유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117:6.20 (1290.6) 모든 체험적 창조들은 그들의 운명 실현에 상호 의존한다. 오직 체험적 실체만이 자아-억제적이고 자아-실존적이다. 하보나와 일곱 초우주들은 유한 달성의 최대

성취를 위하여 서로를 필요로 한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유한 초월을 위하여 외부 공간의 미래 우주들에 언젠가는 의존하게 될 것이다.

117:6.21 (1290.7) 인간 상승자는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다; 하느님은 실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인데 전체 우주 안에서의 체험 지위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상승하는 어떤 한 존재라도, 그들에게 이 발견에 동시적으로 참여하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최대한의 우주적 성숙에 모든 상승하는 자들이 도달하기 전에는, 최극자를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117:6.22 (1290.8) 아버지는 개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는 상승하는 자기 아들들 각자를 조화우주 개별존재로 취급하신다. 마찬가지로 최극자도 개인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체험적 자녀들을 단일 조화우주 전체로 취급한다.

117:6.23 (1290.9) 사람은 자기 가슴속에서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최극자를 탐색해 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창조체들이 최극자의 사랑을 완전하게 계시하면, 그러면

그는 모든 창조체들에게 우주 실재성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우주들이 빛과 생명 속에 안정하게 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117:6.24 (1291.1) 모든 개인성들에 의하여 완전하게 된 자아-실현의 달성 그리고 우주에 두루 완전하게 된 평형의 달성은, 최극자의 달성과 같으며, 모든 유한 실체가 미완성 실존의 한계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증거 한다. 모든 유한 잠재들의 그러한 소진은, 다른 한편으로는, 최극자의 완성된 달성이 산출되고, 최극존재 자신의 완성된 진화적 실재화구현으로 정의할 수 있다.

117:6.25 (1291.2) 사람들은 지진이 바위를 가르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그리고 극적으로 최극자를 발견할 수는 없지만, 고요하게 흐르는 강물이 바닥에 있는 흙을 깎아내는 것처럼 서서히 그리고 끈기 있게 그를 발견할 것이다.

117:6.26 (1291.3) 너희가 아버지를 발견할 때, 너희는 우주들에서 너희의 영적 상승을 일으킨 위대한 원인을 발견할 것이다; 너희가 최극자를 발견할 때, 너희는 파라다이스 진보의 너희 생애의 장엄한 결과를 발견할 것이다.

117:6.27 (1291.4) 그러나 하느님을 아는 어떤 필사자도 조화우주를 통과하는 자신의 여행에 홀로 갈 수는 결코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 길의 모든 걸음마다 그의 옆에서 아버지가 함께 걸어가심을 알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 그가 지나가고 있는 바로 그 길이 최극자의 현존이기 때문이다.

제 7 장. 최극자의 미래

117:7.1 (1291.5) 모든 유한한 잠재들의 실현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모든 진화적 체험의 실현이 완성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최극자가 우주들 안에서 하나의 전능한 신(神) 현존으로서 최종적으로 창발 하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가 믿기로는, 이러한 발전 단계에서 최극자는 영원한 아들이 그렇게 있는 것에 따라서 것처럼, 분리된 별개로 개인성구현되면서, 파라다이스 섬이 그렇게 있는 것에 따라서 것처럼, 확고하게 힘-구현되면서, 공동 행위자가 그렇게 있는 것에 따라서 것처럼, 완벽하게 통합되면서, 존재하리라 믿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현재 우주 시대의 정점에 이를 때 최극위의 유한한 가능성들의 한계들 안에 있을 것이다.

117:7.2 (1291.6) 이것이 최극자의 미래에 대한 전적으로 타당한 개념인 반면, 우리는 이 개념에 들어 있는 특정한 문제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117:7.3 (1291.7) 1. 최극자의 분별불가적 감독자들은 자신의 완성된 진화 이전에는 어떤 단계에서도 신(神)구현화 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감독자들은 지금도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되는 우주들에 관련되는 최극위의 주권을 분별화하며 행사한다.

117:7.4 (1291.8) 2. 최극자는 그가 우주 지위의 완벽한 실재성을 달성하기 전에는 삼위일체 궁극자 안에서 기능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궁극자는 지금 현재도 분별화된 실체이며, 너희에게는 분별화된 궁극자 대관들의 실존이 이미 알려졌다.

117:7.5 (1291.9) 3. 최극자는 우주적 창조체들에게 완벽하게 실제적은 아니지만, 그가 칠중 신(神)에 대하여 아주 현실적이라고 추론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으며, 그것은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우주 아버지로부터 지역우주들의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에 이르기까지 확대된다.

117:7.6 (1291.10) 그것은 시간이 초월시간과 결합하는 곳에, 유한의 상위 제약들에서, 순차에 대한 어떤 종류의 흐려짐과 혼합이 있을지 모른다. 최극자가 이들 초(超)시간 차원들에 자신의 우주 현존을 예측할지 모르며, 그 다음에 제한된 정도까지는 이 미래예측을 구체적으로 투사된 미완성의 내재성으로서 창조된 차원들에게 되돌려 반영함으로써 미래 진화를 예측할지 모른다. 그러한 현상들은 모든 영원에 두루 사람의 미래 우주 달성의 진실 그대로의 예언인 생각 조절자로서 내주되어진, 인간 존재들의 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유한이 초(超)유한과 접촉하는 모든 곳에서 관찰될 수도 있다.

117:7.7 (1292.1) 필사자 상승자들이 파라다이스의 최종의 무리단에 받아들여졌을 때, 그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게 맹세를 하며, 이러한 충성의 맹세를 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유한 창조체 개인성들에 의해 이해되는 것으로서 삼위일체인, 최극자 하느님께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 그런 다음, 최종자 무리들은 진화하는 우주들에 두루 기능하면서, 그들은 지역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되는 사건 많은 시기까지

오로지 파라다이스 기원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이들 완전하게 된 창조계들의 새로운 정부 조직들이 최극자의 창발 하는 주권을 반영하기 시작하게 되면, 바깥에 있는 최종자 무리들이 그 때 그러한 새 정부들의 사법권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한다. 그것은 최극자 하느님이 진화적인 최종의 무리단의 통합자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일곱 무리단의 영원한 운명은 궁극적 삼위일체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최극자에 의해 지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17:7.8 (1292.2) 최극존재는 우주 현시활동을 위한 세 가지 초(超)유한 가능성들을 포함한다:

117:7.9 (1292.3) 1. 첫 번째 체험적 삼위일체에서의 아(亞)절대 협력.

117:7.10 (1292.4) 2. 두 번째 체험적 삼위일체에서의 공동절대 관계.

117:7.11 (1292.5) 3.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에서의 공동무한 참여,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만족할만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다.

117:7.12 (1292.6) 이것은 최극자의 미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정들 중의 하나이지만, 빛과 생명의 지위 달성에 따른 현재의 대우주에 대한 그의 관계들에 관한 많은 추측들도 역시 있다.

117:7.13 (1292.7) 초우주들의 현재의 목표는, 마치 하보나가 그러한 것처럼, 현재의 그들이 완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잠재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완전성은 물리적 그리고 영적 달성과 관계된다. 심지어는 행정-관리적, 통치적 그리고 형제우애관계의 발전에도 관계된다. 앞으로 오는 시대들에서, 부조화와 잘못된 조절 그리고 부적응성의 가능성들이 결국에는 초우주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에너지 순환회로들은 완전한 균형에 그리고 마음에 완벽한 복종에 있게 될 것이며, 반면에 개인성의 현존 안에서 영은 마음의 통치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117:7.14 (1292.8) 이러한 먼 훗날에는 최극자의 영 개인과 전능자의 달성된 힘이 조화-협동된 발달을 이룩할 것으로 추측되며, 그 둘은 최극 마음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통합될 때, 우주들에서의 완성된 실재성—모든 피조 지능체들에 의해 관찰될 수 있고, 창조된 모든 에너지들에

의해 반응되고, 모든 영적 실존개체들 안에서 조화-협동되고, 모든 우주적 개인성들에 의해 체험되게 될 실재성—최극존재로 사실화될 것이다.

^{117:7.15 (1292.9)} 이 개념은 대우주에서 최극자의 실재적인 주권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은 현재 제시되어 있는 삼위일체 행정-관리자들이 그의 대리자로 계속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는 일곱 초우주들 사이에 있는 현재 제시되어 있는 경계는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이며 전체 대우주는 하나의 완전하게 된 전체로 기능할 것이다.

^{117:7.16 (1292.10)} 그렇게 되면 최극자는 오르본톤의 본부인 유버사에 개인적으로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는 그곳으로부터 시간 창조계들의 관리-행정을 지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오직 추측일 뿐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비록 그의 신(神) 현존의 편재(遍在)가 우주들의 우주에 계속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최극존재의 개인성이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분명히 접촉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시대의 초우주 시민들이 최극자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하보나 원주민들과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간의 현재
관계와 비슷한 어떤 것일 것이다.

117:7.17 (1293.1) 이들 미래 시대들의 완전하게 된 대우주는
현재의 그것과 매우 다를 것이다. 공간의 은하계들의
조직의 짜릿한 모험들은 없어질 것이며, 시간의 불확실한
세계들에 생명이 심어지고, 그리고 혼돈으로부터 조화가,
잠재들로부터 아름다움이, 의미들로부터 진리가,
가치들로부터 선(善)이 진화할 것이다. 시간 우주들은
유한한 운명의 충만함을 성취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
공간에서는 휴식, 진화적 완전을 위한 오랜 세월의
투쟁으로부터의 이완-휴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는다! 분명히, 확실히, 그리고 반드시 궁극자
하느님의 창발하는 신(神)에 대한 수수께끼는, 그들의
투쟁하는 진화적 선조들이 최극자 하느님을 향한 탐구에
의해 한 때 도전을 받았던 것과 똑같이, 정착된 우주들의
완전하게 된 이 시민들에게 도전할 것이다. 창조체 체험의
궁극에서 계시되는 새롭고도 더 높은 그러한 차원들에서
우주 아버지의 달성을 위한 매혹적인 아(亞)절대 탐구의
초월적 장관을 보여주기 위해, 우주 운명을 가리고 있는 그
장막이 열리게 될 것이다.

117:7.18 (1293.2) [유란시아에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막강한
메신저에 의해 후원되었음]

제 118 편 최극과 궁극—시간과 공간

118:0.1 (1294.1) 신(神)의 여러 본성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18:0.2 (1294.2) 1. 아버지는 자아-실존적인 자아이다.

118:0.3 (1294.3) 2. 아들은 공존하는 자아이다.

118:0.4 (1294.4) 3. 영은 공동의-실존적 자아이다.

118:0.5 (1294.5) 4. 최극자는 진화-체험적 자아이다.

118:0.6 (1294.6) 5. 칠중자는 자아-분배적 신성(神性)이다.

118:0.7 (1294.7) 6. 궁극자는 초월-체험적 자아이다.

118:0.8 (1294.8) 7. 절대자는 실존적-체험적 자아이다.

118:0.9 (1294.9) 최극자의 진화 달성에서 칠중 하느님이
필수불가결한 반면, 최극자는 또한 궁극자의 생겨나는
창발에 필수 불가결하다. 그리고 최극자와 궁극자의
이원적(二元的) 현존은 하위-절대이고 파생된 신(神)의

기본적인 관계적-연합을 구성한다, 이는 그들이 운명 달성에서 상호 의존적으로 보완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함께 주(主)우주 에서의 모든 창조적 성장의 시작들과 완성들을 연결시키는 체험적 다리를 구성한다.

118:0.10 (1294.10) 창조적 성장은 끝나는 것이 아니지만 언제나 만족하며, 확장에서 끝남이 없지만 과도기의 목표 달성에서의 그러한 개인성-만족의 순간들로 항상 매듭이 지워지고, 그러한 목표의 달성은 조화우주 성장과 우주탐구 그리고 신(神) 달성으로의 새로운 모험에 대한 활력 솟구침의 전주곡으로서 그렇게 효력을 발휘하며 이용한다.

118:0.11 (1294.11) 수학의 권역은 질적인 한계들로 시달리지만 한편으로는, 유한한 마음이 명상을 통하여 지니는 무한에 대한 개념적 기초를 지니도록 제공한다. 숫자에는 양적인 한계가 없으며, 심지어는 유한한 마음의 이해에서도 그러하다. 생각하는 숫자가 아무리 크다 하여도, 너희는 항상 하나 더 더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너희는 그것이 무한에는 부족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숫자에서 이러한 합산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아직도 언제나 하나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18:0.12 (1294.12) 동시에, 무한한 연속들은 어떤 주어진 지점에서 합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합계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소계) 일정 시간과 지위에 정해진 사람에게 목표 달성의 충만한 감미로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조만간에 바로 이 사람은 새롭고도 더 큰 목표들을 향해 열망하고 그리워한다, 그리고 성장에 있어서의 그러한 모험들은 시간의 충만함과 영원의 순환회로 속에서 언제까지나 다가올 것이다.

118:0.13 (1294.13) 계속되는 각각의 우주 시대는 조화우주 성장의 그 다음 시대의 대기실과 같으며, 각각의 우주 신(新)시대는 모든 이전 단계들에 대한 즉각적인 운명을 제공한다. 하보나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저절로 완전이지만 완전성-한계 되어진 창조이다; 진화적 초우주들로 확대되어 나가는 하보나 완전성은 조화우주 운명뿐만 아니라, 진화-이전 실존의 한계로부터의 해방을 발견한다.

제 1 장. 시간과 영원

118:1.1 (1295.1) 조화우주에 대한 신(神)의 관계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이해를 달성하는 것이 사람의 조화우주 예비교육에 도움이 된다. 절대 신(神)이 본질적으로 영원하지만, 하느님들은 영원 안에서 하나의 체험으로 시간에 관계된다. 진화우주 안에서 영원은 현세적인 영속함—영속하고 있는 지금—이다.

118:1.2 (1295.2) 필사 창조체의 개인성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선택하는 기법을 통하여 내주하는 영과의 자아-정체화구현에 의해 영원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한 뜻에 대한 헌납은 목적의 영원-실체의 실현과 대등하다. 이것은 창조체의 목적이 순간들의 연속과 상관하여 고정되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순간들의 연속은 창조체 목적에 관한 어떤 변화도 목격하지 못한다. 수백만 또는 수억만의 순간들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 창조체의 목적과 상관하여 숫자의 의미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영속하는 봉사 안에서 사람 본성과 하느님의 영이 결코-끝남이 없는 연합의 영원 실체 안에서 하느님의 선택과 창조체의 선택이 더하여 결국 생겨난 것이다.

118:1.3 (1295.3) 어떤 주어진 지능체의 시간 의식의 단위와 성숙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시간 단위는 하루나 일 년 또는 더 긴 기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것으로 의식적 자아가 삶의 상황들을 평가하는 것에 따르고, 그리고 착상하는 지능체가 현세적 실존의 사실들을 가늠하고 평가하는 것에 따르는, 기준이다.

118:1.4 (1295.4) 체험과 지혜 그리고 판단은 필사자 체험에서 시간 단위가 확장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다. 인간 마음이 과거로 돌이켜 생각할 때, 그것은 현재 상황에 영향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과거 체험을 평가하는 것이다. 마음이 미래로 뻗어 나갈 때, 그것은 가능한 행동의 미래 의의(意義)를 평가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체험과 지혜 두 가지를 그렇게 계산함으로, 인간 의지는 현재 속에서 판단-결정을 수행한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로부터 태어난 행동 계획이 그렇게 실존이 되기 시작한다.

118:1.5 (1295.5) 발전하는 자아의 성숙에서, 과거와 미래는 현재의 참된 의미를 밝게 조명하기 위하여 함께한다. 자아가 성숙하면 그것은 체험을 위하여 점점 더 먼 과거로

뻗어가며, 한편으로는 그것의 지혜 예측은 미지의 미래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려고 추구한다. 그리고 착상하는 자아가 과거와 미래 속으로 점점 더 멀리 확장할수록, 판단은 순간적인 현재에 점점 덜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결정-행동은 움직이는 현재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며, 한편으로는 그것은 과거-미래 의의(意義)의 측면을 파악하기 시작한다.

118:1.6 (1295.6) 인내는 시간 단위들이 짧은 필사자들이 하는 것이다; 참된 성숙은 실제적인 납득에서 태어난 관용(寬容)에 의해 인내를 초월한다.

118:1.7 (1295.7)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현재에서 더욱 열정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현재의 한계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과거의 체험에 기초를 둔 성숙함에서의 계획들은 것처럼 미래의 가치들을 증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현재 안에서 존재하도록 나아온다.

118:1.8 (1295.8) 미숙함에서의 시간 단위는 현재와 현재가 아닌 것—과거-미래—의 참된 관계를 현재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의미-가치를 현재의 순간에 집중시킨다. 성숙함에서의 시간 단위는 과거-현재-미래의 조화-

협동하는 관계가 너무나 잘 드러내도록 비례되어서
그로서 자아가 생긴 일들 전체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시작하고, 넓혀진 지평들의 파노라마의 전망으로부터
시간의 전경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아마도 시작됨이 없고,
끝남이 없는 영원의 연속체, 시간이라고 불리는 단편들을
비로소 어렴풋이 알기 시작한다.

118:1.9 (1296.1) 무한과 절대의 차원에서는, 현재의 순간이 과거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것도 포함한다. 스스로
이신 이는 스스로 이셨던 이였고 스스로 이실 이를 같이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성과 영원자에 대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개념이다.

118:1.10 (1296.2) 절대적이고 영원한 차원에서는, 잠재적인
실체는 실재적인 실체와 아주 동일한 의미이다. 오직 유한
차원에서만 그리고 시간에-묶인 창조체들에게만 그러한
광대한 차이가 나타난다. 절대로서, 하느님에게는, 영원한
결정을 내린 상승하는 필사자는 이미 파라다이스
최종자이다. 그러나 우주 아버지는,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를 통하여, 그렇다고 해서 인식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 동물과 같은 상태에서부터 실존에서의

하느님과-삶을 차원으로 상승하는, 창조체의 문제들과 투쟁하는 모든 순간들을 알 수 있고, 또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

제 2 장. 전재(全在)와 편재(遍在)

118:2.1 (1296.3) 신(神)의 편재(遍在)는 신성한 전재(全在)의 궁극위와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최극자와 궁극자 그리고 절대자가, 그의 시간-공간 편재(遍在)와 그의 시간-공간-초월 전재(全在)를 그의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우주적 및 절대적 현존으로 보완하고, 조화-협동시키며 통합하여야 하는 것은 우주 아버지와의 의지이다. 그리고 너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신(神) 편재(遍在)가 매우 종종 공간과 연관될 수 있는 반면, 반드시 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118:2.2 (1296.4) 필사자 그리고 모른시아 상승자들로서 너희는 칠중 하느님의 사명활동을 통하여 하느님을 점진적으로 식별하게 된다. 너희는 하보나를 통하여 최극자 하느님을 발견한다. 너희는 파라다이스에서 그를 한 개인으로 발견하며, 그렇게 되면 너희는 최종자로서 마침내 그를 궁극자로 알고자 시도하게 될 것이다. 최종자들로서,

궁극자에 달성한 후에는 추구하려는 오직 하나의 과정만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절대자에 대한 탐구의 시작이 될 것이다. 어떤 최종자든지 그가 하느님 아버지를 만난 최극의 그리고 궁극의 상승 마지막 이후로는 신(神) 절대자에 대한 달성의 불확실성 때문에 혼란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최종자는, 비록 그들이 절대자 하느님의 발견에 성공적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하느님, 거의 무한하고 우주적인 차원들에서 그 자신을 현시하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인 바로 그 하느님을 발견하게 될 뿐이라는 점을 의심 없이 믿을 것이다. 절대적 하느님의 달성은 확실히 우주들의 시원(始原)적 조상이자 뿐만 아니라 개인성들의 최종적 아버지를 계시하게 될 것이다.

118:2.3 (1296.5) 최극자 하느님이 신(神)의 시간-공간 전재(全在)의 실증은 아니지만, 그는 글자그대로 신성한 편재(遍在)의 현시활동이다. 창조자의 영적 현존과 창조의 물질적 현시활동 사이에는,—진화적 신(神)의 우주 창발—편재(遍在)가 되어가는 광대한 권역이 존재한다.

118:2.4 (1296.6) 만일 최극자 하느님이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언제까지나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신(神) 통치가 궁극자의 전반적-통제 아래에서 기능할 것임을 자신하고 있다. 그러한 사건에서 궁극자 하느님은, 전능 최극자의 관리-행정적 기능들에 관계되는 초(超)시간 그리고 초월된 공간에 대한 전반적-통제를 행사하는 초월 전능자(전능하신 자)로서 시간의 우주들에 현시를 시작할 것이다.

118:2.5 (1297.1) 필사자 마음은, 우리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만약에 대우주에서 행정-관리적 주권을 갖는 최극자 하느님의 진화가 궁극자 하느님의 증강된 현시활동에 따라 수반되는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외부 공간의 가정된 우주들에서의 궁극자 하느님의 창발이 절대자 하느님의 유사한 그리고 강화된 계시들에 따라 수반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알지 못한다.

제 3 장. 시간-공간 관계

118:3.1 (1297.2) 신(神)은 오직 편재(遍在)에 의해서만 시간-공간 현시활동들을 유한 개념에 통합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간은 순간들의 연속인 반면 공간은 연관된 지점들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결국 너희는 분석에 의해 시간을 인식하고 합성에 의해 공간을 인식한다. 너희는 개인성의 집대성하는 통찰에 의해 이러한 두 가지 다른 개념들을 조화-협동하고 연관시킨다. 모든 동물세계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이 시간-공간 인식을 소유하고 있다. 동물에게 동작이 의미를 갖기는 하지만, 동작은 개인성 지위의 창조체에게만 가치를 나타낸다.

118:3.2 (1297.3) 사물은 시간으로 조건을 갖추지만, 진리에는 시간이 없다. 너희가 진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너희가 더욱 더 진리일수록, 너희가 과거에 대한 것을 더욱 많이 납득 할수록 미래에 대해 더욱 많이 이해하게 된다.

118:3.3 (1297.4) 진리는 충격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모든 일시의 과도기적 파란으로부터 언제까지나 면제되는 것이다, 하지만 결코 다시는 죽거나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며 항상 활기에 넘치고 잘 맞으며 순응하는 것이다.—눈부신 빛을 비취도록 살아있다. 그러나 진리가 사실과 연결될 때에는, 시간과 공간이 그 의미와 그리고 서로 관련된 그 가치들을 조건 짓게 한다. 사실과 결합된

진리의 그러한 실체들은 개념이 되며 그리고는 그에 따라 상대적 조화우주 실체들의 권역에 귀속된다.

118:3.4 (1297.5) 창조자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와 유한하고 일시적인 창조체의 사실적 체험과의 연결은 최극자의 새롭게 창발 하는 가치로 결국 생겨난다. 최극자에 대한 개념은 영원히 변화하며 유한한 하부 세계와 신성하고 변함이 없는 상부 세계를 조화-협동시키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118:3.5 (1297.6) 공간은 비(非)절대적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절대인 것에 가깝게 된다. 공간은 분명히 절대적 궁극이다. 우리가 물질 차원에서 공간을 납득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점은, 물질 몸체들이 공간 속에 있는 반면 공간은 또한 바로 그 몸체들 속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공간에 대하여 많은 것이 절대적이지만, 그것은 공간이 절대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18:3.6 (1297.7) 상대적으로 말해서 만약에 너희가 공간이 결국 모든 물질 몸체들의 자산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면 공간 관계들을 납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몸체가 공간 속으로 움직일 때, 그것은 또한 그것의 자산을 같이

가지고 간다, 심지어는 그렇게 움직이는 몸체가 그 속에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공간도 가지고 간다.

118:3.7 (1297.8) 실체의 모든 원형틀들은 물질 차원에서 공간을 차지한다. 그러나 영의 원형틀들은 공간에 대한 관계에서만 존재한다; 그들은 공간을 차지하거나 대체하는 자리를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공간에 대한 주된 수수께끼는 관념의 원형틀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마음 권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여러 수수께끼에 부딪히게 된다.—실체—어떤 관념의 원형틀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까? 우리는 실제로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념 원형틀이 공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비(非)물질은 항상 비(非)공간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도저히 안전한 것이 아닐 것이다.

제 4 장. 1차 그리고 2차 원인

118:4.1 (1298.1) 많은 신학적 문제들과 필사 사람의 형이상학적 딜레마들은 신(神) 개인성에 대한 사람의 잘못된 선정과 그에 따라 무한하고 절대인 속성들을 종속적 신성 그리고 진화적 신(神)에 배정한 것에서 기인된다.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참된 첫째원인이 정말로 존재하는 반면에, 또한 조화-협동적이고 종속적인 원인들, 연관하는 두 번째인 원인들의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118:4.2 (1298.2) 첫째 원인들과 둘째 원인들 사이의 중대한 차이는, 1차 원인들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원인성으로부터 도출된 어떤 요소의 유전과도 상관이 없는 기원적 결과들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2차 원인들은 앞에 있었던 다른 원인성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반드시 나타내는 결과들을 발생시킨다.

118:4.3 (1298.3) 분별불가 절대자에 선천적인 순수하게 정적인 잠재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활동에 의해 산출되는 신(神) 절대자의 그 원인성들에 반응한다. 우주 절대자의 현존에서, 이들 원인적으로-잉태된 정적 잠재들은, 곧 특정한 초월적 대리자들의 영향에 대해 능동적으로서 반응하게 되며, 이 대리자들의 활동이 이들 활성화되는 잠재들을 발전을 위한 참된 우주 가능성들의 상태로, 성장을 위한 실재화되는 수용력으로 변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우주의 창조자들과 통제자들이 조화우주

진화의 끝없는 연극을 상연하는 것은 그러한 성숙되는
잠재에서 이루어진다.

118:4.4 (1298.4) 실존적인 것들과 상관이 없는 원인성은 그것의
기본적인 구성에서 삼중적이다. 그것이 현재의 우주
시대에서 기능할 때 그리고 일곱 초우주들의 유한 차원과
관계하여, 그것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118:4.5 (1298.5) 1. 정적인 잠재들의 활성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의지적 명령들의 결과에 따른 그리고
분별불가 절대자 안에서 그리고 그 위에서 작용하는,
신(神) 절대자의 활동에 의한 우주 절대자에서의 운명
확립.

118:4.6 (1298.6) 2. 우주 수용능력들의 결국 생겨남. 이것은
차별화되지-않은 잠재들이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정의되는 계획들로 변환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신(神)의 궁극위의 행동이며 초월적 차원의 다양한
대리자들의 행동이다. 그러한 행동들은 전체 주(主)우주
의 미래 필요성들의 완전한 예상에 있다.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이 우주의 신(神) 개념의 진실 그대로의
체현으로 존재하는 것은 잠재들의 분리와 관계가 있다.

그들의 계획들이 궁극적으로 주(主)우주의 개념 가장자리로 인하여, 확장성에서 공간에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계획 자체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조건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118:4,7 (1298,7) 3. 우주 실재들의 창조와 진화. 최극 창조자들이 성숙되는 잠재들을 체험적 실재들로 시간 변환을 수행하도록 작용하는 것은 신(神) 궁극위의 수용력-산출 현존에 의해 총만케 되는 조화우주에 입각하고 있다. 주(主)우주 안에서, 잠재적 실체의 모든 실재화구현은 발전을 위한 궁극적 수용력에 의해 제한되며, 창발 하는 최종 단계들에서 시간-공간으로 조건 지워진다. 파라다이스로부터 나오는 창조자 아들들은, 실재적으로는, 조화우주 관념으로 볼 때 변환하는 창조자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 대한 창조자로서의 사람의 개념을 결코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유한한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분명히 창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제 5 장. 전능과 동시양립 가능성

118:5.1 (1299.1) 신(神)의 전능(全能)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힘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간-공간 체제 속에서 그리고 필사 이해의 지적 견지의 견해로 볼 때, 비록 무한의 하느님이라도 직사각형의 원들을 만들거나 본질적으로 선한 악(惡)을 창출할 수 없다. 하느님은 신성하지 못한 것을 행하실 수 없다. 철학적 용어들의 그러한 모순은 비(非)실존개체에 해당하며 무(無)가 그렇게 창조되었음을 의미한다. 개인성 특색은 하느님과 닮음과 그리고 하느님과-닮지-않음이 동시에 그렇게 될 수 없다. 공가능성은 신성한 힘에 태생적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전능이 본성을 갖는 물체들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들 그리고 존재들의 본성에 기원을 부여한다는 사실로부터 유래된다.

118:5.2 (1299.2) 태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하시지만, 영원성의 전경(全景)이 무한자의 뜻과 명령들에 응하여 전개될 때, 창조체들, 심지어는 사람들도 운명의 최종 실현에서 하느님의 동반자들이 된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육신으로서의 삶에서도 사실이다; 사람과 하느님이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될 때, 그런 동반자 관계의 미래 가능성들에 어떤 제한도 부여될 수 없다. 영원한

진보에서 우주 아버지가 자신의 동반자라는 것을 사람이 실현하게 될 때, 그가 내주 하는 아버지 현존과 융합할 때, 그는 영적인 면에서 시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며 우주 아버지를 찾는 영원한 진보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다.

118:5.3 (1299.3) 필사자 의식은 사실로부터 의미로 진행하며, 그 다음에는 가치로 옮겨간다. 창조자 의식은 사고 가치로부터 진행하여, 말-의미를 거쳐, 행동의 사실로 진행한다. 하느님은 실존적 무한에 선천적인 분별불가적 합일이라는 막다른 벽을 타개하기 위하여 항상 행동하여야만 한다. 신(神)은 모든 하위-신(神) 창조체들이 얻으려고 분투하는 원형틀 우주, 완전 개인성들, 기원의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善)을 항상 공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느님은 나중에 하느님을 발견하게 될 그 사람을 언제나 먼저 발견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주적인 아들관계와 그에 따른 형제신분이 존재하기 전에 우주 아버지가 반드시 먼저 계셔야만 한다.

제 6 장. 전능과 만능

118:6.1 (1299.4) 하느님은 정말로 전능(全能)하지만, 그는 만능(萬能)은 아니다—그는 되어진 모든 일들을 직접

행하지 않는다. 전능은 전능 최극자와 최극존재의 힘-
잠재를 포용하지만, 최극자 하느님의 의지적 행동은
무한자 하느님의 개인적 행함이 아니다.

118:6.2 (1299.5) 시원적인 신(神)의 만능(萬能)을 옹호하는 것은,
공동으로 작용하는 창조 보좌관들로 구성된 다양한 다른
계층들의 수많은 무리들을 언급하자 않더라고, 거의
백만에 달하는 파라다이스의 창조자 아들들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것과 동일하다. 전체 우주에서 원인이 없는
원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다른 모든 원인들은 바로 이
하나의 첫째 위대한 근원이며 중심으로부터 파생된
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은 광대한 우주에 두루
산재해 있는 무수한 신(神)의 자녀들의 자유의지성에
조금도 위배되지 않는다.

118:6.3 (1299.6) 지역적인 틀에서, 의지작용은 마치 원인이 없는
원인으로 기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독특하고 기원적이며 절대적 첫째원인들과의 관계를
이룩하는 유전적 요소들을 반드시 나타낸다.

118:6.4 (1299.7) 모든 의지작용은 상대적이다.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오직 아버지-스스로 이신 이만이 최종적

의지작용을 가진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영만이 공간으로 무제한적이고 시간으로 무조건적인 의지작용의 특권들을 나타낸다. 필사 사람은 자유의지, 선택의 힘을 자질로서 부여받았으며, 그러한 선택은 절대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 차원에서는 그리고 선택하는 개인성의 운명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최종적이다.

118:6.5 (1300.1) 절대성이 결여된 모든 차원에서의 의지작용은 선택의 힘을 행사하는 바로 그 개인성을 구성하게 되는 제한들과 부딪친다.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선택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사람보다 그 이상의 존재가 되기 위하여 택할 수 있음을 제외하고는, 인간 존재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되기를 선택할 수는 없다; 우주 상승의 항해에 착수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선택과 신성한 의지가 이 시점에서 동시에 일치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들이 원하고 아버지가 뜻하는 것은, 거처가면서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118:6.6 (1300.2) 필사자 삶에서, 서로 다른 행위의 경로들이 계속적으로 열리고 닫히며, 선택이 가능한 시간들 동안에 인간 개인성은 이들 많은 행동의 과정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결정하고 있다. 현세적 의지작용은 시간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은 발현의 기회를 찾기까지 시간의 경과를 기다려야만 한다. 영적 의지작용은 시간 순차로부터 부분적인 탈출을 성취해 가면서 시간의 족쇄로부터의 해방을 맛보기 시작하며, 그것은 영적 의지작용이 하느님의 뜻과 자아-정체성 확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118:6.7 (1300.3) 선택의 행동, 의지작용은 보다 높고 이전에 있었던 선택에 반응하여 실재화된 우주 틀 안에서 기능하여야만 한다. 인간 의지의 전체 범위는 하나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엄밀히 유한하게 제한되었다: 사람이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와 같이 되고자 선택할 때 그러한 선택은 초(超)유한적이다; 오직 영원만이 이 선택이 또한 초(超)아절대인지 밝힐 수 있다.

118:6.8 (1300.4) 신(神) 전능을 인식하는 것은 조화우주 시민신분의 너희의 체험 안에서 보장을 즐기는 것,

파라다이스를 향한 긴 여행에서 안전의 확실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만능성의 오류를 받아들이는 것은 범신주의가 갖는 터무니없는 실수를 포용하는 것이다.

제 7 장. 전지(全知)와 숙명

118:7.1 (1300.5) 대우주에서, 창조자 의지와 창조체 의지의 기능은 주(主)고안건축가들에 의해 수립된 가능성들에 따른 여러 제한들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최대 제한의 예정은 이들 영역에서의 창조체 의지의 주권을 결코 빼앗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모든 유한적 선택에 대한 충만한 승인—궁극적인 예지(豫知)가 유한 의지작용의 폐기를 뜻하지도 않는다. 성숙되어 있고 앞을 내다보는 인간 존재는 보다 어린 연관-동료의 결정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예지는 결정 그 자체의 자유와 순수성을 조금도 빼앗지 못한다. 하느님들은 미성숙한 의지 행동의 범위를 현명하게 제한시켜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러한 규정된 제한들 안에서 참된 의지이다.

118:7.2 (1300.6) 모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선택에 대한 최극 상호관련성도 그러한 선택의 확실성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조화우주의 미리 정해진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며, 모든 실체의 체험적 실재화구현을 분담하는 역할들을 맡기로 선택하든지 또는 안하든지 하는 그 의지 존재들의 예지를 암시하는 것이다.

118:7.3 (1300.7) 유한한 선택에서 실수는 시간에 묶여 있고 시간에 제한받는다. 그것은 시간 안에서만 그리고 최극존재의 진화하는 현존 내에서만 오직 존재할 수 있다. 그러한 잘못된 선택은 시간 속에서 가능하며 (최극자의 미완성을 제외하고는) 실체와의 자유의지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우주 진보를 즐기기 위하여 미성숙 창조체들에게 자질로서 부여되어야만 하는 선택의 특정한 범위를 나타낸다.

118:7.4 (1301.1) 시간이 제약된 공간에서의 죄는 유한 의지의 현세적 해방—심지어 방종까지도—을 분명하게 증거한다. 죄는 조화우주 시민 신분의 최극 책무와 의무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개인성의 상대적 주권 의지의 자유로 인하여 어지러워하는 미성숙을 나타낸다.

118:7.5 (1301.2) 유한 권역에서의 사악한 불의는 하느님-미(未)정체성확인 자아신분의 덧없는 실체를 제시한다.

창조체가 하느님 정체성 확인되어 가면서 오직 그에 따라,
우주들 안에서 그는 진정으로 실체가 된다. 유한한
개인성은 자아-창조된 것은 아니지만, 선택이라는 초우주
경기장에서 그것은 운명을 자아-결정한다.

118:7.6 (1301.3) 생명의 증여는 물질-에너지 체계들로 하여금
자아-영속과 자아-증식 그리고 자아-적응을 가능하게
한다. 개인성의 증여는 살아있는 유기체들에게 자아-
결정과 자아-진화 그리고 신(神)의 융합 영과 함께 자아-
정체화구현이라는 한층 더해진 특권들을 부여한다.

118:7.7 (1301.4) 하위-개인적인 살아있는 것들은 에너지-물질을
활성화시키는 마음을 나타내며, 첫째로는 물리통제자에
따른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보조 마음-영들에 따른 것이다.
개인성 자질은 아버지로부터 오며 살아있는 체계에게
선택이라는 독특한 특권들을 부여한다. 그러나 개인성이
실체 정체화구현의 의지적 선택을 행사하는 특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참되고 자유로운 선택이라면,
진화하는 개인성은 자아-혼란과 자아-분열 그리고 자아-
파괴에 이르는 선택의 가능성 역시 갖고 있어야만 한다.

진화하는 개인성이 유한 의지의 이행에서 정말로 자유롭다면 우주적 자아-파멸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

118:7.8 (1301.5) 그러므로 실존의 보다 낮은 차원들에 두루 개인성 선택의 제한들을 좁게 만듦으로써 증가된 안정이 있다. 우주들이 상승됨에 따라 선택은 점점 더 자유로워진다; 상승하는 개인성이 신성(神性)의 지위를 달성하고, 우주의 목적들에 대한 헌신의 최극위를 성취하며, 우주-지혜 달성의 완성을 이루고, 하느님의 뜻과 방법에 창조체 정체화구현의 최종이 이룩되면, 선택은 결국에는 신성한 자유에 접근하게 된다.

제 8 장. 통제와 전반적-통제

118:8.1 (1301.6) 시간-공간 창조계에서, 자유의지는 금지들, 제약들로 둘러싸여 있다. 물질-생명 진화는 처음에는 기계적이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활성화되며, (개인성의 증여 이후에는) 그것이 영의 지도를 받는다.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의 유기체 진화는 생명운반자들의 기원적인 물리적-생명 이식들의 잠재에 의해 물리적으로 제한된다.

118:8.2 (1301.7) 필사 사람은 기계, 살아있는 기능구조이다; 그의 뿌리는 정말로 에너지의 물리적 세계에 있다. 인간의 여러

반응들은 본질적으로 기계적이다; 삶의 대부분은 기계와 비슷하다. 그러나 하나의 기능구조, 사람은 기계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는 마음이 자질로서 부여되어 있고 영이 내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물질적인 삶 동안 그의 실존의 화학적 그리고 전기적 구조체를 결코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의 영적 충동들의 이행에 인간 마음을 헌신하는 과정에 따라 체험에서의 안내하는 지혜에 이 물리적-생명 기능구조를 종속시키는 방법을 점점 더 배울 수 있다.

118:8.3 (1301.8) 의지의 기능을 영은 해방시키고 기능구조는 제한한다. 기능구조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영과 미(未)-정체성확인된 불완전한 선택은 위험하며 불안정하다. 기계적인 통치는 진보의 희생으로 안정을 보장한다; 영 동맹은 선택을 물리적 차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동시에, 증강된 우주 통찰력과 증가된 조화우주 이해력에 의해 산출되는 신성한 안정을 보장한다.

118:8.4 (1302.1) 창조체들을 괴롭히는 커다란 위험은, 생명 기능구조의 속박들로부터의 해방을 성취함에서, 그가 영과의 조화로운 연락 작업을 이루는 것에 의하여 이

안정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 실패하는 데에 있다. 창조체의 선택은, 기계적 안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해방되면, 더욱 위대한 영 정체화구현과는 독립적으로 더욱 나아가는 자아-해방을 시도할 수 있다.

118:8.5 (1302.2) 생물학적 진화의 전체 원리가 원시인이 어떤 커다란 자아-절제의 자질을 갖고 거주민이 사는 세상들에 나타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진화를 계획하였던 동일한 그 창조적 설계는 그러한 미개한 창조체들의 반(半)영적 선택 범위를 효과적으로 제한시키는 시간과 공간의 외부적 속박들, 굶주림과 두려움을 마찬가지로 제공한다. 사람 마음이 점점 더 어려운 장애물들을 성공적으로 타고 넘음에 따라, 이 동일한 창조의 설계 역시 애써서 획득된 체험적 지혜의 종족 유산(遺産)의 느린 축적을 준비한다.—다른 말로 하면, 감소되는 외부적 금지들과 증강되는 내부적 금지 사이의 균형 유지를 준비한다.

118:8.6 (1302.3) 진화에서의, 인간 문화적 진보에서의 완만함은 진보의 위험한 속도를 저지하도록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제동 장치—물질적 타성—의 효력을 입증한다.

그래서 시간 자체는 인간 활동을 바로-가깝게 에워싸는 장애물들로부터 그렇지 않으면 미성숙한 탈출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인 것들을 완화시키고 분산시킨다. 왜냐하면 문화가 너무 빠르게 앞지르게 되면, 물질적 성취가 경배-지혜의 진화를 앞지르게 되면, 문명 그 자체 내에 쇠퇴의 씨앗이 내포되기 때문이다; 체험적 지혜의 신속한 증강에 의해 보강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인간 사회들은 높지만 미성숙의 달성 차원들로부터 움츠러들 것이고, 지혜의 공백 기간인 “암흑기”가 형성되어 자아-해방과 자아-통제 사이의 불균형의 냉혹한 부활을 보게 될 것이다.

118:8.7 (1302.4) 칼리가스티아의 사악한 불의는 진보적으로 인간을 해방시키는 시간 통치기 역할을 건너 뛴 것이었다—억제하는 장애물들, 그 당시 필사자 마음들이 아직 체험적으로 타고 넘어가지 못했던, 장애물들을 무턱대고 파괴한 것이었다.

118:8.8 (1302.5) 시간과 공간의 부분적인 축약을 초래할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이 행동은 초월되는 금지의 장벽 대신에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지혜의 씨앗들을 그 자체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118:8.9 (1302.6) 루시퍼는 이와 동일하게 그 지역체계에서 특정한 해방의 미성숙한 달성의 억제를 위해 작용하는 시간 통치를 붕괴시키고자 하였다. 빛과 생명에 안정된 지역 체계는, 바로 그 영역의 안정되기 이전 시대들에서 있을 분열적이고 파괴적인 많은 기법들의 운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관점들과 통찰력들을 이미 체험적으로 성취하였다.

118:8.10 (1302.7) 사람이 두려움의 족쇄들을 떨쳐버림에 따라, 자신의 기계들로 대륙과 대양을 연결하고, 그들의 기록들로 세대들과 시대들을 연결시킴에 따라, 그는 확장하는 인간 지혜의 도덕적 명령에 따라 새롭고 자발적으로 취한 억제로 모든 각각의 초월되는 억제를 대체해야만 한다. 이들 자아에-부과하는 억제들은 인간 문명의 모든 요소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인 동시에 가장 희박한 것—공의의 개념이자 형제신분의 이상—이다. 심지어 사람은, 하느님이 사람을 일치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그가 감히 착상하는 그러한 대우와 똑같은

것으로 그가 스스로를 일치시키는 그런 대우를 사람들에게 주려고 작정할 때 한편으로는 영적 형제신분의 시작됨을 성취하는 것이며, 그렇게 참으로 자기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용기를 낼 때 자비라는 역제의 옷으로 비로소 스스로 자격을 갖춘다.

118:8.11 (1303.1) 자동적인 우주 반응은 안정적이며 어떤 형태로든 조화우주에서 계속되고 있다. 하느님을 알고 그의 뜻을 하고자 하는 개인성, 영의 통찰력을 소유한 개인성은 신성하게 안정적이며 영원히 실존한다. 사람의 위대한 우주 모험은 기계적인 정적인 안정으로부터 영적인 동적인 신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각각의 삶의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의 개인성 결정들의 기세와 불변성에 의해 이 변환을 성취한다.

제 9 장. 우주 기능구조

118:9.1 (1303.2) 시간과 공간은 주(主)우주 의 결합되어진 기능구조이다. 그것들은 유한한 창조체들이 무한자와 함께 조화우주 안에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유한 창조체들은 시간과 공간에 의해 절대 차원들로부터

효과적으로 격리된다. 그러나 이러한 격리 수단들은, 그것들이 없이는 필사자가 존재할 수 없는데, 유한한 활동의 범위를 직접적으로 한정시킨다. 그것들이 없이는 어떤 창조체도 활동할 수 없으며, 한편 모든 창조체의 활동은 그것에 의하여 분명하게 한정되어 있다.

118:9.2 (1303.3) 보다 높은 마음들에 의해 생성된 기능구조들은 그들의 창조적인 근원들을 해방시키려고 기능한다, 그러나 어떤 정도들은 모든 종속의 지능체들의 활동을 일정불변하게 제한한다. 이 제한이 우주들의 창조체들에게 우주들의 기능구조들로서 확실히 보이게 된다. 사람은 족쇄 풀린 자유의지를 가진 것이 아니다; 선택의 그의 범위에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 반경 안에서 그의 의지는 상대적으로 주권을 갖는다.

118:9.3 (1303.4) 필사 개인성의 생명 기능구조, 인간의 몸체는 초(超)필사적 창조 계획의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 자신에 의해 결코 완전하게 통제될 수가 없다. 오직 상승하는 사람이, 융합된 조절자와 연락하여, 개인성 표현을 위한 장치를 자아-창조할 때에만, 그는 거기에서 완전한 통제를 성취할 수 있다.

118:9.4 (1303.5) 대우주는 기능구조일 뿐만 아니라,—최극 마음에 의해 활성화되고, 최극 영과 조화-협동하며, 힘과 개인성 통일의 최대 차원들에서 최극존재로서 표현을 하는 살아있는 기능구조, 기계적이고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그러나 유한 창조의 기능구조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을 부인하고 실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118:9.5 (1303.6) 기능구조들은 조화우주 잠재에 그리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창조적 마음의 산물이다. 기능구조들은 창조자 생각의 고정된 결정체들이다. 그것들은 그들을 기원시킨 의지작용 개념에 항상 진실하게 기능한다. 그러나 어떤 기능구조의 목적성은 그것의 기원 안에 있는 것이지 그것의 기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118:9.6 (1303.7) 이 기능구조들은 신(神)의 활동을 제한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바로 이러한 역학 속에서 신(神)이 영원한 표현의 한 위상을 성취한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인 우주 기능구조들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절대적인 뜻에 응답하여 실존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것들은 무한자의 계획과 완전한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영원히 기능할 것이다; 바로 그것들이 그 계획의 비(非)의지적인 원형틀들이다.

118:9.7 (1303.8) 우리는 파라다이스의 기능구조가 영원한 아들의 개인성과 어떻게 상관관계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납득하고 있다; 이것은 공동 행위자의 기능이다. 그리고 우리는 분별불가자의 이론적 기능구조와 신(神) 절대자의 잠재적 개인과 상관관계된 우주 절대자의 활동에 관계되는 이론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진화하는 최극 신(神)과 궁극 신(神)에서 우리는 어떤 미(未)개인적 위상들이 그들의 의지적 상대자와 실재적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우리는 관찰하며, 그래서 원형틀과 개인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진화하고 있다.

118:9.8 (1304.1) 과거 영원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무한한 영의 표현의 합일 속에서 연합을 발견하였다. 만일 미래 영원 속에서,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지역우주들의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들이 외부 공간의 영역들에서 창조적 연합을 달성하게 된다면, 그들의 신성한 본성들의 병합된 표현으로서 그들의 합일이 무엇을 창조하게 될 것인가? 아마도 우리는 지금까지 계시되지 않은 궁극 신(神),

새로운 유형의 초(超)-행정-관리자의 현시활동작용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존재들은, 개인성의 고유한 특권들, 개인적 창조자의 연합존재, 미(未)개인적 창조 영, 필사-창조체 체험, 그리고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진보적 개인성구현을 포용할 것이다. 그러한 존재들은 그들이 포용할 개인적 그리고 미(未)개인적 실체에서 궁극일 것이다, 반면에 그들은 창조자와 창조체의 체험들을 병합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 외부 공간의 창조계들에서 기능하는 삼위일체들의 그러한 제3 개인들 속성이 무엇이든지간에, 그들은 무한한 영이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그들의 창조자 아버지들과 그들의 창조자 어머니에게 같은 관계의 어떤 것을 유지할 것이다.

118:9.9 (1304.2) 최극자 하느님은 모든 우주적 체험의 개인성구현이고, 모든 유한 진화의 초점화구현이며, 모든 창조 실체의 극대화이고, 조화우주 지혜의 성취이며, 시간 속의 은하계들의 조화로운 아름다움들이 형체로 체현된 것이며, 조화우주 마음 의미들의 진리, 최극 영 가치들의 선(善)이다. 그리고 최극자 하느님은, 영원한 미래 안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유한한 다양성들을, 심지어 그들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 절대적 차원에 현재
실존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것처럼, 체험적으로
의미 넘치는 하나의 전체로 합성할 것이다.

제 10 장. 섭리의 기능

118:10.1 (1304.3) 섭리는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미리
결정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곧 바로 조화우주 횡포가 될 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상대적인 선택의 힘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자녀 응석을 받아주어 버릇없이 만드는
근시안적인 애정도 신성한 사랑은 될 수 없다.

118:10.2 (1304.4) 삼위일체로서—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전능
최극자가 아니지만, 전능자의 최극위는 그들 없이는 결코
현시될 수 없다. 최극자의 성장은 실재성의 절대자들 위에
중심을 두고 있고 잠재성의 절대자들 위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전능 최극자의 기능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기능들과 관계되어 있다.

118:10.3 (1304.5) 최극존재에서, 우주 활동의 모든 위상들이 이
체험적 신(神)의 개인성에 의해 부분적으로

재(再)연합하고 있음이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일체를 하나의 하느님으로 바라보고자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 개념을 현재 알려지고 조직된 대우주에 제한시킨다면, 우리는 진화하는 최극존재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부분적 초상화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최극 신(神)이 대우주에서 유한 물질과 마음과 영의 개인성 합성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118:10.4 (1304.6) 하느님들은 속성들을 갖지만 삼위일체는 기능들을 가지며, 그리고 삼위일체와 마찬가지로, 섭리는 하나의 기능, 우주들의 우주의 어떤-개인적이-아닌 전반적-통제의 복합체 이다, 그것은 전능자의 힘 안에서 합성하고 있는 칠중 하느님의 진화적 차원들로부터 신(神)의 궁극위의 초월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확장하고 있다.

118:10.5 (1304.7) 하느님은 각각의 창조체를 자녀로 사랑하며, 그 사랑은 모든 시간과 영원에 두루 각 창조체를 보호한다. 섭리는 전체와 관련하여 기능하며 그러한 기능이 전체와 관련되어 있듯이 모든 창조체의 기능을 다룬다. 모든 존재에 관한 섭리 개입은 어떤 전체의 진화적 성장에

관계하는, 그 존재의 기능의 중요성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한 전체는 종족 전체, 국가 전체, 행성 전체, 또는 심지어 보다 높은 전체일 수도 있다. 섭리 개입을 초래하는 것은 창조체의 기능의 중요성이지, 창조체 개인의 중요성이 아니다.

118:10.6 (1305.1)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서의 아버지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하느님의 지혜에 일치하여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어 조화우주의 사건들의 흐름 속에 어느 때든지 아버지로서의 손을 대신다.

118:10.7 (1305.2) 그러나 사람이 섭리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자주 자기 자신의 상상의 산물이며, 우연한 여러 상황들이 어찌다 옆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럴지라도 공간의 에너지의, 시간의 운동들의, 마음의 생각들의, 성격의 이상들의, 영적 본성들의 욕구들의, 그리고 진화하는 개인성들의 목적을 가진 의지적 행동들의, 참된 그리고 상호관련성을 실재화하는, 우주 실존의 유한 영역에서 실제로 창발 하는 섭리는 있다. 물질 영역들의 환경들은

최극자와 궁극자의 연동하는 현존들안에서 최종 유한
집대성활동을 발견한다.

118:10.8 (1305.3) 대우주의 기능구조들이 마음의 전반적-통제를
통하여 최종 정밀의 점까지 완전해짐에 따라, 그리고
창조체 마음이 영과의 완전해진 집대성활동을 지나 신성
달성의 완전을 향해 상승함에 따라, 그리고 그 결과로
최극자가 이러한 모든 우주 현상들의 실재적 통합자로서
창발 함에 따라, 섭리는 그렇게 점점 더 식별할 수 있게
된다.

118:10.9 (1305.4) 진화 세계들에서 이따금씩 만연되고 있는
놀랄만한 우연한 여건들에서의 어떤 것들은 점진적으로
창발 하는 최극자의 현존, 그의 미래 우주 활동들을 미리
맛보는 것 때문일 수 있다. 필사자가 섭리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은 그렇지 않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의
판단은 삶의 환경들의 참된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력의
부족으로 많은 장애를 받는다. 필사자가 행운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아마도 불운이 될 것이다;
노력 없이 얻는 휴양을 베풀어주고, 공을 들이지 않고 얻는
부유함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행운의 미소가 인간

고통에서의 가장 큰 것일 수도 있다; 어느 고통 받고 있는 필사자에게 시련이 겹치는, 심술 굳은 운명의 외견상 냉혹함이 실체에서는, 미성숙한 개인성의 물렁한 죄를 실체적 성격의 담금질된 죄로 변질시키는, 담금질하는 불길일 수도 있다.

118:10.10 (1305.5) [118:10.10] 진화하는 우주들에 섭리가 있다, 그리고 창조체들은 진화하는 우주들의 목적을 인식하는 수용력을 달성하는 바로 그 정도에 따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 우주의 목적들을 분별하는 완성된 수용력은 창조체들의 진화 완성과 동등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완성 우주들의 현재 지위의 한계 내에 있는 최극자의 달성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118:10.11 (1305.6) [118:10.11] 아버지의 사랑은 다른 모든 개별존재들의 행동들이나 반응들과는 독립적으로 개별존재의 가슴속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그 관계는—사람과 하느님—개인적이다. 신(神)의 미(未)개인적 현존은 (전능 최극자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체에 관하여 현시한다. 최극위의 전반적-통제의 섭리는 유한 운명들의

성취 안에서의 우주 진보의 연속적인 부분들로서 점점 더 분명하게 되어간다. 체계들, 별자리들, 우주들, 그리고 초우주들이 빛과 생명에 안정하게 됨에 따라, 최극자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상관자로서 점증적으로 창발 한다, 반면, 궁극자는 모든 사물들의 초월적 통합자로서 점진적으로 창발 한다.

118:10.12 (1306.1) [118:10.12] 진화 세계에서 태초(太初)에는, 물질적인 계층의 자연적 발생들과 인간 존재들의 개인적 욕구들은 종종 반목으로 나타난다. 진화 세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것들은 필사 사람이 납득하기에 상당히 어렵다—자연 법칙은 인간의 납득에서 분명히 무자비하고 냉혹하여,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들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너무 자주 있다. 그러나 행성 발달 속에서 인간성이 진보됨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관점이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수정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118:10.13 (1306.2) [118:10.13] 1. 사람의 증강되는 시야—그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그의 증가되는 납득; 시간의 물질 사실들, 생각의 의미 있는 관념들,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의 가치 있는 이상들의 이해를 위한 그의 확장되는 수용력.

사람들이 물리적 본성의 사물들의 잣대로만 측정하는 한, 그들은 시간과 공간에서 합일체를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을 결코 가질 수 없다.

118:10.14

(1306.3)

[118:10.14]

2.

사람의 점증하는

통제—물질세계의 법칙들과 영적 실존의 목적들, 그리고 이러한 두 실체들의 철학적 조화-협동의 가능성들에 대한 지식의 점증적인 축적. 야만인, 사람들은 자연적 기세의 맹공격 앞에서 아무 것도 어찌할 수 없었으며, 자기 자신의 내면적 공포심들의 비참한 지배 앞에 노예가 되어 있었다. 반(半) 문명화된 사람은 자연 영역들의 비밀들의 창고의 열쇠를 풀기 시작하였고, 그의 과학은 느리기는 하지만 효과적으로 자신의 미신들을 파괴시키는 동시에 철학의 의미들과 참된 영적 체험의 가치들에 대한 이해를 위한 새롭고 확장된 사실적 기초를 준비하였다. 문명화된, 사람은 언젠가 자기 행성의 물리적 기세들을 상대적으로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의 가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은 그가 동료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에 따라 효력을 보이면서 흘러나올 것이며, 한편으로는 인간 실존의 가치들이 필사자 수용력의 한계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118:10.15 (1306.4)

[118:10.15] 3. 사람의 우주 집대성활동—인간 통찰력의 증가와 더해지는 인간의 체험적 성취의 증가는 그를—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 최극존재—최극위의 통합하는 현존들과의 조화로움에 더욱 가깝도록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빛과 생명에 오랫동안 안정되어 온 세계에 최극자의 주권을 확립한다. 그러한 진보된 행성들은 정말로 조화의 시(詩)들이며, 조화우주 진리의 추구를 통하여 달성된 선(善)의 그림들이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것들이 행성에 발생될 수 있다면, 그러면 체계와 더 광대한 대우주의 단위체에서도, 그들이 유한 성장의 잠재가 모두 소진되었음을 나타내는 안정됨을 그 역시 성취하는 데에 따라, 더욱 위대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118:10.16 (1306.5)

[118:10.16] 이러한 진보된 계층의 행성에서는, 섭리가 실재성으로 된다, 삶의 환경들은 상관관계 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자기 세계의 물질적 문제들을 지배해왔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가 우주들의 경향에 따라 살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우주 아버지의 달성에 이르는 최극위의 경로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118:10.17 (1306.6) [118:10.17] 하느님의 왕국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있다, 이 왕국이 세계의 모든 개별존재들의 가슴속에서 실재화될 때, 하느님의 통치가 그 행성에 실재화된다; 이것이 최극존재의 달성된 주권이다.

118:10.18 (1306.7) [118:10.18] 시간 속에서 섭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완전을 성취되는 임무를 달성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은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선하든지 또는 악하든지 간에, 모든 것의 아버지를 향한 그들의 탐구에서 하느님을 아는 필사자들의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우주 사실을 그가 깊이 생각한다면, 그것의 영원 의미들 속에 있는 이 섭리를 지금이라도 미리 맛볼 수 있다.

118:10.19 (1306.8) [118:10.19] 섭리는 사람들이 물질로부터 영적인 상태로 높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더 분간할 수 있게 된다. 완성된 영적 통찰력의 달성은 상승하는 개인성으로 하여금 그 이전까지 혼돈의 상태였던 것에서 조화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심지어 모론시아 모타도 이 방향에서 실제적인 진보를 표현한다.

118:10.20 (1307.1) [118:10.20] 섭리는 부분적으로 미완성 우주들 안에 현시된 미완성 최극자의 전반적-통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다음과 같을 수밖에 없다:

118:10.21 (1307.2) 1. 부분적이다—최극존재의 실재화구현의 미완성 때문이다.

118:10.22 (1307.3) 2. 예측할 수 없다—차원과 차원에서 늘 변하는 창조체 태도에서의 동요, 그리하여 최극자 안에서 명백하게 달라지는 상호보답적인 응답에 원인이 되고 있는, 그러한 동요 때문이다.

118:10.23 (1307.4) [118:10.21] 사람들이 삶의 환경에서 섭리의 개입을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에 대한 대답은 많은 경우, 삶을 향한 자기 자신의 태도 변화들이다. 그러나 섭리는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환상이나 마술도 아니다. 그것은 유한한 우주들의 강력한 주권이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창발 하는 것이다, 진화하는 창조체들은 그들의 우주 진보 속에서 그의 장엄한 현존을 때때로 발견하기도 한다. 섭리는 첫째는 최극자 안에서 그 다음에는 궁극자 안에서 그리고 아마도 절대자 안에서, 영원의 목표들을 향한 우주 은하계들과 시간 개인성들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행진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한에도
동일한 섭리가 있고, 이것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뜻이고 활동이고 목적이며 이렇게 우주들 위의 우주들의
조화우주 파노라마를 동기부여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118:10.24 (1307.5) [118:10.22] [유란시아에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막강한 메신저에 의해 후원되었음]

제 119 편 그리스도 미가엘의 증여

119:0.1 (1308.1) 네바돈의 저녁별들의 우두머리인 나는 우주
통치자인 네바돈의 미가엘의 일곱 차례에 걸친 증여에
관한 이야기를 계시하는 임무를 띠고 가브리엘에 의해
유란시아에 배정되었으며, 나의 이름은 가발리아이다. 이
글이 만들어짐에 있어서, 나는 나의 임무에 의해 부과된
한계들을 엄밀히 지킬 것이다.

119:0.2 (1308.2) 증여의 속성은 우주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에게 선천적인 것이다. 그들에게 종속된 살아있는
창조체들의 삶의 체험들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들의
바램에 있어서,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다양한 계층들은
자신들의 파라다이스 부모들의 신성한 본성을 반영하고
있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영원한 아들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길을 떠났는데, 그랜환다의 상승 시기들 동안 그리고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최초의 순례자가 발생하는 동안 하보나의 일곱 순환회로들 위에 직접 일곱 번 증여되었다. 그리고 영원한 아들은 자신의 대리자들인 미가엘과 아보날 아들들의 개인성들 속에서 우주의 지역우주들에게 자신을 계속 증여한다.

119:0.3 (1308.3) 영원한 아들이 창조자 아들을 구체적으로 투사된 지역우주에 증여할 때, 그 창조자 아들은 새로운 그 우주의 완성과 통제 그리고 평정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맡는데, 그의 일곱 차례에 걸친 증여들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고 관할하는 초우주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보증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창조계에 대한 충분한 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영원한 삼위일체에 드리는 엄중한 맹세를 포함한다. 이 의무는 우주 조직과 창조에 참여하기 위하여 파라다이스로부터 나온 모든 미가엘 아들에 의해 수행된다.

119:0.4 (1308.4) 이 창조체 육신화들의 목적은 그러한 창조자들이 현명하고 동정적이며 공정하고 분별력 있는 주권자들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신성한 이 아들들은 태생적으로

의롭지만, 계속되는 이 증여 체험들의 결과로 사려 깊게 자비로운 존재가 된다; 그들은 본성적으로 자비가 넘치지만, 이 체험들이 그들을 새롭고도 추가적인 방법으로 자비롭도록 만든다. 이 증여들은 신성한 정의로 그리고 정당한 심판에 의해서 지역우주들을 통치하는 숭고한 임무들을 위한 그들의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의 마지막 과정들이다.

119:0.5 (1308.5) 수많은 부수적 유익이 이 증여들에 의해 이득을 얻고 영향을 받는 우주 지능체들의 다른 계층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여러 세계들과 체계들 그리고 별자리들에게 일어나더라도, 그것들은 여전히 창조자 아들 자신의 개인적 훈련과 우주적 교육을 완성하도록 기원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증여들은 지역우주의 현명하고 의로우며 효과적인 운영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반면, 삶에 대한 그것의 다양한 형태들과 지능적이지만 완전하지 못한 무수한 창조체들을 충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창조에 대한 공정하고도 자비로우며 납득하는 관리-행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19:0.6 (1308.6) 미가엘 아들들은 자신들이 창조한 존재들의 다양한 계층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동정심으로 우주 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일을 시작한다. 그들은 이들 서로 다른 모든 창조체들을 위한 자비의 엄청난 비축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스스로 만든 이기적인 수렁 속에서 잘못을 범하고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연민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공의와 정의의 자질들이 옛적으로 늘 계신이들이 어림잡은 것 안에서 만족되지는 못할 것이다. 초우주들의 이들 삼원적 통치자들은 창조자 아들이 그 자신의 창조체들의 관점을, 그들 실존의 환경에서 그리고 바로 이들 창조체 자신으로서 실재적 체험에 의하여, 실제로 획득하기 전에는, 창조자 아들을 우주 주권자로서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방법으로 그러한 아들들은 총명하고 납득하는 통치자가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스리고 우주 권한을 행사하는 다양한 집단을 알게 된다. 그들은 체험적 창조체 실존에서 태어난 살아있는 체험으로서, 실천적 자비, 공정한 판단, 그리고 인내심을 스스로 소유한다.

119:0.7 (1309.1) 네바돈이라는 지역우주는 현재 자신의 증여 봉사를 완료한 한 창조자 아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진화하고 완전으로 되고 있는 우주의 광대한 영역들 전체에 대해 공의롭고도 자비로운 최극위를 행사한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시간과 공간 우주들에게 영원한 아들이 611,121번째로 증여된 것이고, 그는 4천억 년 전쯤에 너희 지역우주를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미가엘은 유란시아가 현재의 형태를 갖추 무렵인 약 10억 년 전에 자신의 첫 번째 증여 모험을 준비하였다. 그의 증여들은 1억 5,000만 년의 간격을 두고 발생하였는데, 마지막 증여는 약 1,900년 전에 유란시아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이제 이 증여들의 본질과 성격에 대해 나에게 허락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밝히고자 한다.

제 1 장. 첫 번째 증여

119:1.1 (1309.2) 거의 10억 년 전, 네바돈 우주의 지도관들과 우두머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가엘이 자신(미가엘)의 밝혀지지 않은 임무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동안 자신의 형님인 임마누엘이 네바돈에서의 주권을 곧 대신하게 될 것임을 밝혔을 때 그것은 구원자별에서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었다. 별자리 아버지들에게 보낸 작별 인사를 제외한다면, 다른 여러 지도들 가운데에서 “나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가 떠나있는 이

기간 동안 너희를 임마누엘의 보호와 관리 하에 두겠다.”는 말 이외에는 이 사건에 대한 다른 어떤 발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19:1.2 (1309.3) 이 작별 인사를 발표한 이후에, 미가엘은 구원자별의 파견 장소에 나타났는데, 그가 혼자서 왔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유버사 또는 파라다이스로 떠나기 위해 준비하던 그 전의 여러 경우들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었다. 그는 출발하기에 앞서 자신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를 떠나 있을 것이다. 너희들 대부분이 나와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을 내가 알지만, 나는 너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희는 할 수 없다. 나는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뜻을 행하기 위해 가는 것이며, 나의 임무를 완결하고 이 체험을 갖게 되면,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내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네바돈의 미가엘은 그곳에 모인 모든 존재들의 눈에서 사라졌고 표준시간으로 20년 동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구원자별 전체에서, 오직 신성한 통치자와 임마누엘만이 무슨 일이 있어 났는지를 알았으며, 연합으로 늘 계신이는

그의 비밀을 오직 그 우주의 우두머리 집행자, 가브리엘, 빛나는 새벽별과 공유하였다.

119:1.3 (1309.4) 구원자별의 모든 주민(住民)들과 그 별자리 그리고 체계 본부 세계들에 거주하는 존재들은 그 창조자 아들의 임무와 행방에 대하여 어떤 말을 듣고자 하는 희망을 안고 우주 지능체를 향한 그들 각각의 수신소에 모여 있었다. 미가엘이 출발한 지 3일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중대한 소식도 받지 못하였다. 이 날, 네바돈에 있는 그 계층의 본부들인 멜기세덱 구체로부터 하나의 교신(交信)이 구원자별에 등록되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전에 들어본 바가 없는 이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우리들의 조직과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우리와는 다른 한 낯선 멜기세덱 아들이 오늘 정오에 이 세계의 수신소에 나타났다. 그는 단독의 전(全)천사를 대동하였는데, 그 존재는 유버사로부터의 신임장을 간직하였고 우리들의 우두머리에게 지도를 내렸고, 옛적으로 늘 계신이로부터 유래되었고 구원자별의 임마누엘의 동의를 받았으며, 새로운 이 멜기세덱 아들이 우리들의 계층 속에 받아들여지고 네바돈의 멜기세덱들의

비상 봉사에 배정되도록 지도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지도되었다; 그대로 실행되었다.”

119:1.4 (1310.1) 그리고 이것이 미가엘의 첫 번째 증여에 관하여 구원자별의 기록들 속에 나타난 전부이다. 유란시아 시간으로 100년이 지나기까지는 아무런 다른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 때에서야 미가엘의 발표되지 않은 우주 관련사들의 지도 재개와 복귀의 사실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상한 기록이 멜기세덱 세계에서 발견될 것인데, 그것은 그 시대의 비상 무리단들에 속한 이 독특한 멜기세덱 아들의 봉사에 관한 설명이다. 이 기록은 현재 아버지 멜기세덱의 집의 전경(前景)을 차지하고 있는 단순한 모습의 성전에 보관되어 있고, 우주 비상사태에 대한 24번의 임무들에 그가 배정되었던 것과 관련하여 이 일시적인 멜기세덱 아들의 봉사를 설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 내가 살펴본 이 기록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

119:1.5 (1310.2) ”그리고 이 날 정오에, 사전 발표 없이 그리고 오직 세 명의 우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우리 계층의 이 방문자 아들은 그가 왔던 대로 우리 세계로부터

사라졌는데, 오직 한 명의 단독의 전(全)천사만이 동행하였다; 이 기록은 이 방문자가 현재 하나의 멜기세덱으로서, 그가 하나의 멜기세덱으로서 활동하였던 멜기세덱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았음과, 그가 우리들 계층의 비상대책 아들로써 배정되었던 모든 업무들을 신실하게 수행하였음에 대한 증명과 함께 폐쇄되어 있다. 우주적인 허락에 의해 그는 멜기세덱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의 비길 데 없는 지혜와 최극의 사랑 그리고 임무에 대한 뛰어난 헌신 때문에 우리들의 사랑과 숭배를 받는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였고 우리를 납득하였으며 우리와 함께 봉사하였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의 충성되고 헌신된 멜기세덱들인데, 왜냐하면 우리 세계에서 이 손님이 지금은 영원토록 멜기세덱 본성의 우주 사명활동이 되었기 때문이다.

119:1.6 (1310.3) 그리고 그것이 미가엘의 첫 번째 증여에 대해 너희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된 전부이다. 물론 우리는 10억 년 전에 멜기세덱들과 함께 너무도 신비스럽게 봉사하였던 이 색다른 멜기세덱이 자신의 첫 번째 증여 임무를 위해 육신화 되었던 바로 그 미가엘이었음을 충만하게 납득한다. 기록들은 독특하고도 유능한 이

멜기세덱이 미가엘이었음을 특별하게 입증하지는 않지만, 그 사실은 우주적으로 믿어지고 있다. 아마도 그 사실에 대한 실재적인 설명이 아들별의 기록들 이외에서는 발견될 수 없을 것이며, 그 비밀한 세계의 기록들은 우리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신성한 아들들의 이 신성한 세계에서만 육신화와 증여에 대한 그 비밀들이 총만하게 알려져 있다. 우리는 모두 미가엘 증여들에 대한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른다. 우리는 우주의 통치자, 멜기세덱들의 창조자가 어떻게 그토록 갑자기 그리고 신비스럽게 그들 중의 하나로서, 100년 동안 하나의 멜기세덱 아들로써 일하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될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제 2 장. 두 번째 증여

119:2.1 (1310.4) 미가엘의 멜기세덱 증여 이후 거의 1억 5,000만 년 동안 네바돈의 우주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고, 그 후에 37번 별자리의 11번 체계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체계 주권자인 라노난덱 아들에 의한 오해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자리 아버지들에 의해 이미 판결이 내려졌었고 그 별자리에 대한 파라다이스

조언자인 충심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공인되었지만, 복종하지 않는 그 체계 주권자는 그 판결에 충분히 만족하지는 않았다. 불만족한 상태로 100년 이상이 지난 뒤에 그는 네바돈 우주 안에서 항상 유발되었던 창조자 아들의 주권에 대항하는 가장 널리 퍼지고 위험한 반역들 중의 하나에 자기 연관-동료들을 이끌고 참여하였는데, 그 반역은 판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유버사에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활동에 의해 종료되었다.

119:2.2 (1311.1) 반역한 이 체계 주권자 루텐시아는 네바돈 표준시간으로 20년 이상 자신의 본부 행성에서 최극의 권위에 있었다; 그 후에 지고자는 유버사로부터의 허락을 받아 그의 분리를 명하였고, 투쟁으로 비탄에 젖고 혼동된 체계에 속한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지도를 담당할 새로운 체계 주권자에 대한 지명을 구원자별 통치자들에게 요청하였다.

119:2.3 (1311.2) 구원자별에 대한 이 요청이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미가엘은 “나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파라다이스 형제인 임마누엘, 연합으로 늘 계신이의 손에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고 “때가 이르면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우주 본부로부터 떠나기 위해 색다른 그 성명서들 중 두 번째 것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119:2.4 (1311.3)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 증여와 관련되어 그가 떠나던 때에 목격된 것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미가엘은 다시 자신의 본부 구체를 떠나갔다.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이 작별이 있는 지 3일 후에, 하나의 새롭고도 알려지지 않은 요원이 네바돈의 1차 라노난덱 아들들의 예비무리단 속에 나타났다. 새로운 이 아들은 정오 무렵에 나타났는데, 홀로 있는 3품천사를 대동하여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 천사는 유버사 옛적으로 늘 계신이로부터의 신임장을 지참하였고, 구원자별의 임마누엘에 의해 공인되었으며, 새로운 이 아들이 37번 별자리의 11번 체계에 물러난 루텐시아의 후계자로서 그리고 하나의 새로운 주권자가 지정될 때까지 활동하는 체계 주권자로서의 충분한 권한을 갖고 배정되었음을 지도하였다.

119:2.5 (1311.4) 우주 시간으로 17년 이상 동안 생소하고 알려지지 않은 이 임시적 통치자가 그 관련사들을 관리-운영하였으며, 혼동되고 문란한 이 지역 체계의

어려움들을 판결하였다. 그전에 어떤 체계 주권자도 이보다 더 열렬한 사랑을 받고 더 널리 존중받으며 높이 평가된 적이 없었다. 공의와 자비의 면에 있어서 새로운 이 통치자는 교란된 그 체계의 질서를 잡은 반면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공들여 보살폈는데, 자신의 임의적인 행동들에 대해 임마누엘에게 사과만 하였더라면 체계 직위 권한을 공유하는 특권을 자신의 반항적인 전임자에게 제공하였을 정도였다. 그러나 루텐시아는 이러한 자비로운 권유들을 일축하였는데, 새롭고도 낯선 이 체계 통치자가, 아주 최근에 자신이 공공연히 반항하였던 바로 그 우주 통치자인 미가엘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수백만에 달하는 오도되고 현혹된 그의 추종자들은 그 시대에 파로니아 체계의 구원자 주권자로서 알려진 새로운 이 통치자의 용서를 받아들이었다.

119:2.6 (1311.5) 그리고 나서 새로 지정된, 우주 권한자들에 의해 폐워된 루텐시아의 영원한 후계자로서 지명된 체계 주권자가 그곳에 도착한 사건 많은 날이 도래하였으며, 파로니아 전체는 지금까지 네바돈이 이미 알고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인자한 체계 통치자와의 이별을 슬퍼하였다. 그는 모든 체계들의 사랑을 받았고 라노난덱

아들들로 이루어진 자신의 모든 동료 집단들로부터
송앙을 받았다. 그는 아무런 예식 없이 떠나지는 않았는데,
그가 그 체계 본부를 떠날 때 하나의 성대한 축전이
준비되었다. 심지어는 죄를 범한 그의 전임자도 이러한
소식을 전해왔다: “당신은 모든 면에서 공의롭고
정당하였습니다. 제가 파라다이스 규칙을 계속 거부하는
동안에도, 저는 당신이 공의롭고 자비로운 행정-
관리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9:2.7 (1312.1) 그리고 나서 반역 체계의 이 과도기 통치자는
자신의 짧은 행정-관리를 맡은 체류기간을 가진 그 행성을
떠났으며, 한편 그로부터 3일째 되던 날 미가엘은
구원자별에 나타났고 네바돈 우주의 통치를 재개하였다.
미가엘의 주권과 권한의 승진된 주권에 대한 세 번째
유버사 선포가 뒤를 이었다. 첫 번째 선포는 그가 네바돈에
도착하였을 때 있었고, 두 번째는 멜기세덱 증여의 완성
직후에 있었으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두 번째, 즉
라노난덱 임무의 종료 다음에 있었다.

제 3 장. 세 번째 증여

119:3.1 (1312.2) 구원자별에 있는 최고협의회는 61번 별자리 안에 있는 87번 체계의 217번 행성에서, 그들을 돕도록 한 물질아들을 급파해 달라는 생명운반자들의 요청에 대한 심의를 방금 완결 지었었다. 지금 이 행성은 그 때까지 네바돈 전역에는 그러한 반역이 두 번 있었던, 또 다른 체계 주권자가 잘못에 빠진, 거주세계들의 체계에 위치하게 되었다.

119:3.2 (1312.3) 미가엘의 요청에 따라, 이 행성의 생명운반자들의 청원에 대한 작용이 임마누엘에 의해 그리고 그에 대한 그의 보고에 의해 고려되는 동안 연기되었다. 이것은 변칙적인 과정이었으며, 나는 우리 모두가 어떤 유별난 일을 예상하였고 불안감에 오래 젖어있지는 않았음을 잘 기억하고 있다. 미가엘은 우주 관리를 임마누엘의 손에 맡기는 일에 착수하는 한편, 천국의 무리들에 대한 명령권을 가브리엘에게 위탁하였고, 자신의 행정-관리적 책임을 그렇게 배분하면서, 우주 어머니 영을 떠났으며 그 전에 있었던 두 번의 경우에 했던 것과 똑같이 구원자별의 파견 장소로부터 사라졌다.

119:3.3 (1312.4) 그리고, 예상되었던 대로, 그로부터 3일째 되던 날에 예고 없이 61번 별자리에 있는 87번 체계의 본부 세계에 하나의 낯선 물질아들이 출현하였는데, 홀로 있는 2품천사와 동행하였고, 유버사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공인되었으며, 구원자별의 임마누엘에 의해 보증되었다. 활동 중인 그 체계 주권자는 새롭고 신비로운 이 물질아들이 217번 세계의 행성영주로 활동하도록 즉시 지정하였으며, 이러한 임명은 61번 별자리의 지고자에 의해 즉시 비준되었다.

119:3.4 (1312.5) 그래서 독특한 이 물질아들은 행성 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전체 세대 동안 혼자 활동하면서, 외부 우주와의 어떤 직접적인 교신 없이 포위된 체계 안에 위치한, 분리와 반역의 한 고립된 세계에서 자신의 힘든 생애를 시작하였다. 비상시의 이 물질아들은 행성영주와 그의 전체 참모들의 불이행에 대한 회개와 교화(敎化)를 이룩하였으며 지역우주들 안에 설립된 대로 파라다이스 규칙의 충성스러운 봉사에 그 행성이 회복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때가 이르자, 원기를 회복하고 구제된 이 세계에 물질아들과 딸이 도착하였으며, 그들이 눈에 보이는 행성 통치자들로써 정당하게 임명되자, 임시적인

또는 비상시의 행성영주는 공식적으로 떠났는데, 어느 날 정오에 사라졌다. 그로부터 3일째 되던 날, 미가엘은 구원자별에 있는 자신이 늘 있었던 장소에 나타났으며, 초우주 방송은 네바돈에서의 미가엘의 더욱 증진된 주권을 알리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네 번째 선언을 즉시 가져왔다.

119:3.5 (1312.6) 나는 이 물질아들이 혼동된 이 행성에서 괴로운 환경들을 이겨낸 그 인내심과 끈기 그리고 노련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허락을 말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고립된 이 세계에 대한 교화(敎化)는 네바돈 전체의 생존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매혹적으로 감동적인 단원들 중의 하나이다. 이 임무가 마쳤을 때 지능 존재의 어떤 종속적 계층과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된 이 증여들 속에 참여하기를 그들의 사랑하는 통치자가 왜 선택하였는지가 네바돈 전체에게 이미 명백하게 되었다.

119:3.6 (1313.1) 멜기세덱 아들이로서, 그 다음에는 라노난덱 아들이로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질아들이로서의 미가엘의 증여는 모두 똑같이 신비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다. 각각의 경우에 그는 갑작스럽게 그리고 증여된 그 집단의

충만하게 성숙된 개별존재로 나타났다. 그러한 육신화들의 비밀은 아들별의 신성한 구체에 있는 기록들의 내부 순환계에 접근한 그들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119:3.7 (1313.2) 고립과 반역 속에 있는 세계의 행성영주로서의 이 놀라운 증여 이후로, 네바돈에 있는 어떤 물질아들과 딸들도 자기들의 직책에 대해 불평하도록 또는 자기들의 행성 임무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비난하도록 유혹된 적이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물질아들들은 그 우주의 창조자 아들 안에서 자신들이 분별력 있는 주권자와 동정심을 가진 친구, 자신들도 시도되고 시험되어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점들에서 시도되고 시험된” 어떤 존재를 소유하고 있음을 항상 알았기 때문이다.

119:3.8 (1313.3) 이 각각의 임무들 뒤에는 우주 기원의 모든 천상(天上)의 지능체들 가운데에서의 증가되는 봉사와 충성이 따라왔으며, 반면에 그 다음에 이루어진 각각의 증여 시대는 우주 관리-행정의 모든 방법들 면에서 그리고 정부의 모든 기법들 면에서 발달하고 진보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 증여 이후로 어떤 물질아들 또는 딸도 미가엘에

대항하는 반역에 고의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공경하였기 때문에 결코 의식적으로 그를 거부할 수 없었다. 오직 속임수와 꾀변을 통해서만 보다 높은 유형의 반역적 개인성들에 의해 최근의 아담들이 타락으로 인도되었다.

제 4 장. 네 번째 증여

119:4.1 (1313.4) 미가엘이 네바돈 정부를 임마누엘과 가브리엘의 손에 맡기려고 나선 것은 유버사의 1,000년의 주기적 점호(點呼)들 중의 하나가 끝날 무렵 이었다; 물론, 그러한 활동에 뒤따라,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회상하면서, 우리 모두는 미가엘의 네 번째 증여 임무를 위해 그가 사라질 것을 목격하려고 준비했다, 우리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가 곧 구원자별 파견장소로 나가 우리들 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119:4.2 (1313.5) 증여를 위해 사라진 후 셋째 날에, 우리는 유버사에 보내진 우주 방송에서 네바돈의 세라핌천사 본부로부터 이런 의의(意義)깊은 소식 내용을 관찰하였다: “알려지지 않은 세라핌천사의 예고 없는 방문을 보고하겠는데, 단독의 초(超)천사와 구원자별의

가브리엘이 동행하였다. 등록되지 않은 이 세라핌천사는 네바돈 계층의 자격이 있고 유버사 옛적으로 늘 계신이로부터의 신임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구원자별의 임마누엘에 의해 보증되었다. 이 세라핌천사는 지역우주의 천사들의 최극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시험결과가 나왔고, 교습 조연자 무리단에 이미 배정되었다.”

119:4.3 (1313.6) 세라핌천사 증여의 이 기간 동안, 우주 표준시간으로 40년이 넘는 기간 미가엘은 구원자별에 없었다. 이 시기 동안 그는 하나의 가르치는 세라핌천사 교습 조연자, 너희가 개인 비서라고 일컫는 존재로서 배정되었는데, 22개의 서로 다른 세계들에서 활동하였다. 그의 마지막 또는 최종 임무는 네바돈 우주에서 3번 별자리의 84번 체계에 있는 462번 세계에서 삼위일체 교사 아들의 증여 임무에 소속된 조연자와 조력자로서 이었다.

119:4.4 (1314.1) 이렇게 배정된 7년의 기간 동안, 이 삼위일체 교사 아들은 자신의 세라핌천사 연관-동료의 신분에 관하여 전적으로 확신된 적이 전혀 없었다. 모든 세라핌천사들은 그 시기 동안 정말로 독특한 흥미와 관심으로 대해졌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권자가 우주 안에 파견되었고 하나의 세라핌천사로 변장해 있었음을 잘 알았지만,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그가 이 삼위일체 교사 아들의 증여 임무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그는 결코 적극적으로 정체성이 확인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두루 그 최극 세라핌천사에게는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창조체 증여의 임무에 임하고 있는 그 우주의 주권자를 위하여 불시에 무리 역할을 했었음을 발견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천사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창조자이며 통치자인 그가 “세라핌천사 개인성의 모습을 입고서 모든 면을 시험했고 단련했음”이 언제까지나 진실이 되어오고 있다.

119:4.5 (1314.2) 계속적인 이 증여들이 우주 생명의 보다 낮은 형태들의 본성을 점점 더 가미함에 따라, 가브리엘은 이 육신화 모험들에 점점 더 많이 관여하였는데, 그것은 증여된 미가엘과 활동하는 우주 통치자인 임마누엘 사이에 우주 연락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이었다.

119:4.6 (1314.3) 미가엘은 이제 자신이 창조한 우주 아들들의 세계층에 대한 증여 체험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멜기세덱, 라노난덱, 물질아들이다. 그 다음에 그는 자신에게 속한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필사자들인 의지적 창조체들 중에서 가장 낮은 형태의 상승 생애에 대한 다양한 위상들에 관심을 돌리기 전에 하나의 최극 세라핌천사로서 천사의 삶과 비슷한 상태로 개인성구현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게 되었다.

제 5 장. 다섯 번째 증여

119:5.1 (1314.4) 유란시아에서의 시간 계산대로, 3억 년보다 약간 더 이전에, 우리는 또 한 번 임마누엘에게 우주 권한을 이양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미가엘이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경우는 그의 목적지가 오르본톤 초우주의 본부인 유버사임을 그가 알린 점에서 그 이전의 다른 경우들과 달랐다. 때가 되자 우리의 주권자가 떠났지만, 초우주의 방송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에 미가엘이 도착하였음을 알리지 않았다. 그가 구원자별에서 떠난 직후에 유버사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방송이 있었다: “미리 알려지지 않고 번호가 없으며 필사자 기원을 갖는 상승 순례자가 네바돈이라는

우주로부터 오늘 도착하였는데, 구원자별의 임마누엘에 의해 공인되었고 네바돈의 가브리엘이 동행하였다. 미(未)-정체성확인의 이 존재는 참된 영의 지위를 제시하고 있고 우리의 동료관계로 받아들여졌다.”

119:5.2 (1314.5) 만일 너희가 오늘 유버사를 방문할 수 있다면, 이븐토드가 그곳에 머무는 날들을 차근차근 열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인데, 독특하고도 알려지지 않은 이 시간과 공간의 순례자는 유버사에서 그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상승하는 이 필사자는, 적어도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영(靈) 단계와 똑같은 뛰어난 개인성으로, 오르본톤 표준시간 11년 기간 동안 유버사에서 살았고 그리고 기능하였다. 이 존재는 오르본톤의 여러 지역우주들로부터 오는 자기 동료들과 공통점을 갖는 하나의 영(靈) 필사자로서의 임무배정을 받아들였고 의무를 수행하였다. “모든 면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동료로서 시험을 받고 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경우에서 그는 자기 상급자들의 자신감과 신뢰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음을 입증하였고 한편, 어김없이 자기 동료 영들의 존중과 충성스러운 찬미를 받았다.

119:5.3 (1315.1) 구원자별에서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관심을 가지고 이 영 순례자의 생애를 함께 따라다녔는데, 가브리엘의 현존으로 보아 번호가 없고 겸손한 이 순례자 영이 우리들의 지역우주의 증여된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필사자 진화의 한 단계의 임무를 실현한 미가엘의 이 첫 번째 출현은 네바돈 전체를 짜릿하게 하고 매혹시키는 사건이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미 듣고 있었지만 그 때에서야 그것들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충만하게 성숙되고 완전하게 훈련된 영 필사자로서 그리고 하보나를 향하여 상승하는 필사자들 집단이 진출할 때까지 자신의 생애를 그렇게 계속하는 존재로 유버사에 출현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 대화를 나누었고, 곧 가브리엘과 함께 갑작스럽게 그리고 아무런 예식 없이 유버사를 떠났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구원자별에 있는 자기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119:5.4 (1315.2) 이 증여를 마치기 전까지는, 미가엘이 가장 높은 멜기세덱 조직으로부터 아래로는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의 삶과 피로 이루어진 필사자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속한 다양한 계층의 우주 개인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육신화될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었다. 이 무렵에 멜기세덱 학교들은 미가엘이 언젠가 육신을 입은 하나의 필사자로 육신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며,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증여를 위한 가능한 기법에 대해 많은 추측이 발생하였다. 그 미가엘은 지역우주와 초우주 전체를 망라하는 모든 길의 창조체 진보 전체 계획에 새로움을 제공하고 이익을 증대시킨 상승하는 필사자의 역할을 개인적으로 이미 수행하였다.

119:5.5 (1315.3) 계속적인 이 증여들의 기법은 아직도 하나의 신비로 남아있다. 심지어는 가브리엘도 파라다이스 아들이며 우주 창조자인 이 분이 자기 자신에게 종속된 창조체들 중의 하나의 삶을 살고 그 개인성을 어떻게 의지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고백하였다.

제 6 장. 여섯 번째 증여

119:6.1 (1315.4) 구원자별 전체가 하나의 임박한 증여의 준비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미가엘은 체류자들을 본부 행성에 소집하였으며, 육신화 계획의 남은 부분을 처음으로 알렸는데, 그 내용은 다섯 번째 별자리의 본부 행성에 있는

지고자(至高者) 아버지들의 법정에서 한 모론시아 필사자의 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가 구원자별을 곧 떠나게 됨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증여가 필사자 육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어떤 진화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발표를 처음으로 들었다.

119:6.2 (1315.5) 여섯 번째 증여를 위해 구원자별을 떠나기 전에, 미가엘은 모여 있는 그 구체의 거주민들에게 연설을 하였고 모두가 충분히 지켜보는 가운데 떠났는데, 단 한 명의 세라핌천사와 네바돈의 빛나는 새벽별만이 동행하였다. 그 우주에 대한 관리가 다시 임마누엘에게 위임되는 동안, 보다 멀리 미치는 행정-관리적 책임이 주어졌다.

119:6.3 (1315.6) 미가엘은 5번 별자리의 본부에 나타났는데 상승하는 지위의 충만하게-성장한 모론시아 필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번호가 없는 이 모론시아 필사자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내가 계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미가엘의 증여 체험 중에서, 심지어는 유란시아에서

가졌던 극적이고 비참한 체류 기간을 포함한 것들 중에서 가장 색다르고 놀라운 신(新)시대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임무를 받음에 있어서 나에게 부과된 많은 제한들 중에 하나는 미가엘이 엔단탐의 모론시아 필사자로서 가진 이 놀라운 생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119:6.4 (1316.1) 미가엘이 이 모론시아 증여로부터 돌아왔을 때, 우리 모두에게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우리의 창조자가 하나의 창조체가 되었었다는 것, 우주 주권자가 자신의 영역들 안에 있는 창조된 지능체의 가장 낮은 형태에게도 친구가 되며 동정심 많은 조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우주 관리-행정에 있어서의 창조체의 관점에 대한 이러한 진보적 성취를 우리는 이미 유념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기는 하였지만, 모론시아 필사자 증여의 완성 이후에 더욱 확실하게 되었고, 유란시아에서의 목수의 아들의 생애로부터 그가 돌아왔을 때 더욱 그렇게 되었다.

119:6.5 (1316.2) 우리는 미가엘이 모론시아 증여로부터 언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 가브리엘로부터 미리 듣고

있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구원자별에서 적절한 환영식을 준비하였다. 수백 수천만의 존재들이 네바돈의 별자리 본부 세계들로부터 모였으며, 구원자별에 가까운 세계들에 체류하는 대부분의 존재들은 자기 우주에 대한 주권을 되찾는 그를 환영하기 위해 함께 모여 있었다. 자기 창조체들에게 그토록 강렬하게 관심을 가졌던 주권자를 환영하고 그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많은 연설들에 대한 답으로 그는 오직 이렇게 대답하였을 뿐이었다: “나는 오로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하였을 뿐이다. 자기 창조체들을 사랑하고 간절히 납득하고자 하는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따름이다.”

119:6.6 (1316.3) 그러나 그날 이후로 미가엘이 사람의 아들이자 유란시아에 내려가는 여행을 시작할 때까지, 네바돈 전체는 자신들의 주권 통치자가 진화적 상승의 모론시아 필사자로 증여 육신화 하여 그가 머문 모든 별자리의 물질적 세계들로부터 모인 자기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엔단텀에서 활동하였던 많은 업적들에 대해 계속 토의하였다.

제 7 장.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의 증여

119:7.1 (1316.4) 수만 년 동안 우리 모두는 미가엘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의 증여를 고대해 왔다. 가브리엘은 최종적인 이 증여가 필사 육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왔었지만, 우리는 최고점에 달한 이 모험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

119:7.2 (1316.5) 미가엘이 자신의 마지막 증여 무대로 유란시아를 선택하였다는 공개적인 발표는 아담과 이브의 불이행에 대해 우리가 배운 직후에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35,000년이 넘도록, 너희가 사는 세계는 전체 우주의 협의회들에서 매우 유명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란시아 증여에 있어서 어느 과정에서도 (육신화의 신비는 제외하고) 비밀에 부쳐진 것이 없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미가엘이 최종적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최극의 우주 주권자로서 구원자별로 돌아오기까지, 너희의 작지만 높은 명성을 얻은 세계에서 발산되는 모든 것들이 최대한으로 우주에 선전되었다.

119:7.3 (1316.6) 우리는 이것이 그 방법일 것이라고 믿고자 하였던 반면, 그 사건 자체가 발생할 때까지, 미가엘이 영역의 어떤

도움도 없는 한 아기로 지구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때까지는 그가 증여되기로 선택한 그 개인성 집단의 충만하게 성장한 개별존재로 항상 나타났었으며, 베들레헴의 그 아기가 유란시아에 태어났음을 알리는 방송이 구원자별로부터 퍼져나갔을 때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119:7.4 (1316.7) 그 때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이며 친구인 그가 어떤 도움도 없는 한 아기로 증여됨으로써 자신의 위치와 권한에 있어서 명백하게 위협을 받는, 자신의 생애 중에 가장 불확실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 최종적인 필사자 증여가 네바돈 우주의 명백한 최극 주권자로서의 영원한 지위가 그에게 주어질 것임을 알게 되었다. 지구 시간으로 3분의 1 세기(世紀) 동안 이 지역우주에 있는 모든 지역의 관심이 유란시아로 집중되었다. 모든 지능체들은 마지막 증여가 진행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는 사타니아에서의 루시퍼 반란과 그리고 유란시아에서의 칼리가스티아 배반에 대해 오랜 동안 알고 있었었기에 그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들의 통치자가, 미천한 형태로서 그리고 필사 육체와 똑같은

모습으로 유란시아에 육신화하려고 낮추어지게 되면 그에 따라 일어나게 될 투쟁의 정도를 잘 납득하고 있었다.

119:7.5 (1317.1) 유대인 아기인 요셉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 특별한 아기가 파라다이스의 신성한 아들이며 이 지역우주의 모든 사물들과 존재들의 창조자인 네바돈의 미가엘의 육신화였음을 제외하고는 그 이전과 이후의 다른 모든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착상되어 잉태되었고 세상에 태어났다. 그리고 예수라는 인간 형태로서 신(神)이 육신화된 이 신비는 이 세상에서의 자연적인 기원과 달리 언제까지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것이다. 영원 속에서조차도 너희는 자신의 창조체들과 비슷한 형태로 창조자가 육신화 되었던 그 기법과 방법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아들별의 비밀이며, 그러한 신비들은 증여 체험을 통과한 그 신성한 아들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알려진다.

119:7.6 (1317.2) 지구에 있는 어떤 현자(賢者)들은 미가엘의 임박한 도래를 알고 있었다. 한 세계가 다른 것들과 접촉하는 것을 통하여, 영적 통찰력을 가진 이 현자들은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증여될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세라핌천사는 중도 창조체들을 통하여 한 집단의 갈대아 사제들에게 알려주었는데, 그들의 영도자는 아드논이라는 사람이었다. 이들 하느님의 사람들은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를 방문하였다. 예수의 탄생과 관련하여 유일한 초자연적 사건은 첫째 동산에서 이전에 아담과 이브에게 배속되었던 세라핌천사에 의해 아드논과 그의 연관-동료들에게 알려진 것이었다.

119:7.7 (1317.3) 예수의 인간 부모들은 그들 시대와 세대에서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며, 육신화된 이 하느님의 아들은 그렇게 여인에게서 태어났고 그 종족과 시대의 어린이들이 겪는 평범한 풍습 속에서 자라났다.

119:7.8 (1317.4)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머물렀던 이야기, 너희가 사는 세계에 창조자 아들이 필사 존재로 증여되었다는 내용은 이 이야기의 범위와 목적을 벗어나는 문제이다.

제 8 장. 증여 이후의 미가엘의 신분

119:8.1 (1317.5)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최종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증여된 후에 그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네바돈의 주권 통치자로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창조한 지역우주의 확립된 지도자로서 우주

아버지에 의해 인정되기도 하였다. 그가 구원자별로 돌아옴에 따라, 사람의 아들이며 하느님의 아들인 미가엘은 네바돈의 확고한 통치자로 선포되었다. 미가엘의 주권에 대한 여덟 번째 선포가 유버사로부터 도착하였고, 또한 파라다이스로부터는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공동 선언문이 도래하였는데 하느님과 사람의 연관인 이 분을 그 우주의 유일한 수장(首長)으로 임명하는 내용이었고 구원자별에 주둔한 연합으로 늘 계신이에게 파라다이스로 돌아가라는 자신의 뜻을 표명하라고 지도하는 것이었다. 별자리 본부에 있는 총심으로 늘 계신이 역시 지고자들의 협의회로부터 물러나라는 지도를 받았다. 그러나 미가엘은 조언과 협조에 있어서 삼위일체 아들들의 철수에 동의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그들을 구원자별에 모아놓고 그들이 네바돈에서 언제까지나 임무를 맡아줄 것을 개인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들은 이 요청에 따르고 싶다는 바램을 파라다이스에 있는 자신들의 감독자들에게 표명하였으며, 그로부터 잠시 후에 중앙우주에 소속된 이들 아들들을 네바돈의 미가엘의 법정에 언제까지나 배속시킨다는 파라다이스 분리 명령이 발효되었다.

119:8.2 (1318.1)

미가엘의 증여 생애가 완성되기까지 그리고 자신이 직접 창조한 그 우주에서의 자신의 최극 권세가 최종적으로 확립되기까지 거의 10억 년이 소요되었다. 미가엘은 창조자로 태어났고, 행정-관리자로 교육받았으며, 집행자로 훈련되었지만, 체험에 의해 자신의 주권을 얻도록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너희가 사는 작은 세계는 각각의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이 자신이 직접 만드는 우주에 대한 무제한적 통제와 지도권을 위해 필요한 체험을 미가엘이 성취한 경기장으로 네바돈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다. 너희가 지역우주를 상승하게 되면, 미가엘의 이전 증여들에 관계하였던 개인성들의 이상들에 대해 좀 더 배우게 될 것이다.

119:8.3 (1318.2)

자신의 창조체 증여들을 완결함에 있어서, 미가엘은 자기 자신의 주권을 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극자 하느님의 진화하는 주권을 증강시키기도 하였다. 이 증여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창조자 아들은 창조체 개인성의 다양한 본성들로 하강하여 탐험하는 일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다양하게 변화가 많은 뜻에 대한 계시들을 성취하기도

하였는데, 그들의 합성적인 합일은 최극 창조자들에 의해
게시된 대로, 최극존재의 뜻에 대한 계시이다.

119:8.4 (1318.3) 신(神)들의 다양한 이들 의지 양상들은 일곱
주(主) 영들의 달리하는 본성들 속에서 영원히
개인성구현되어 있으며, 각각의 미가엘 증여들이 이러한
신성 현시활동 중의 하나에 대한 독특한 계시로 있었다.
멜기세덱 증여에서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연합된
뜻을, 라노난덱 증여 시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현시하였다; 아담의-증여 시에는 아버지와 영의 뜻을,
세라핌천사 증여 시에는 아들과 영의 뜻을 계시하였다;
유버사의 필사자 증여에서는 공동 행위자의 뜻을,
모론시아 필사자 증여에서는 영원한 아들의 뜻을
묘사하였다; 유란시아의 물질적 증여에서는 심지어 살과
피로 이루어진 한 필사자로서 우주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다.

119:8.5 (1318.4) 일곱 번에 걸친 이 증여들의 완성은 미가엘의
최극 주권의 해방을 가져왔으며 또한 네바돈에서의
최극자의 주권을 위한 가능성을 창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미가엘의 증여들 중에 어떤 것도 최극자 하느님을

게시하지 않았지만, 일곱 번에 걸친 증여들 전체 총합은
최극존재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네바돈 계시이다.

119:8.6 (1318.5) 하느님으로부터 사람으로 하강하는 체험에서,
미가엘은 현시가능성의 부분성으로부터, 유한 활동의
최극위 그리고 아(亞)절대적 기능을 위한 자신 잠재의
해방의 최종까지 상승하는 체험을 공존으로 체험하였다.
창조자 아들인 미가엘은 시간-공간 창조자이지만, 칠중
주(主) 아들인 미가엘은 삼위일체 궁극자를 구성하는
신성한 무리단들 중의 한 구성원이다.

119:8.7 (1318.6) 삼위일체의 일곱 주(主) 영을 계시하는 체험을
통과함에 있어서, 창조자 아들은 최극자의 뜻을 계시하는
체험을 통과하였다. 최극위의 뜻에 대한 계시자로
활동함에 있어서, 미가엘은 다른 모든 주(主)아들들과
함께 자기 자신을 최극자와 영원히 정체성을 확인하였다.
이 우주 시대에 그는 최극자를 계시하며 최극위의 주권을
실재화구현하는 일에 참여한다. 그러나 다음 우주 시대에
우리는 그가 외부 공간의 우주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최초의 체험적 삼위일체 속에 최극존재와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믿는다.

119:8.8 (1319.1) 유란시아는 네바돈 전체의 정서를 일으키는 성지(聖地)이며, 천만 거주세계의 우두머리이며, 모든 네바돈에서의 주권자, 영역에 대한 멜기세덱 사명활동자, 체계 구원자, 아담의-구세주, 세라핌천사 연관-동료, 상승하는 영들의 친구, 모론시아 진보자, 필사 육신의 모습을 한 사람의 아들, 그리고 유란시아의 행성영주, 그리스도 미가엘의 필사자 고향이다. 그리고 너희 기록이, 바로 이 예수가 자신의 마지막 증여의 세계, 십자가의 세계로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119:8.9 (1319.2) [그리스도 미가엘의 일곱 번에 걸친 증여들을 묘사하는 이 글은 63번째로 전해진 일련의 글에 해당하는데, 미가엘이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지구에 나타난 그 때까지 유란시아의 역사를 서술하는 여러 개인성들에 의해 후원되었다. 이 글들은 맨투시아 멜기세덱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는 12명의 네바돈 위원회에 의해 공인되었다.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구성하였고 그것들을 영어로 기록하였는데, 유란시아 시간으로 서기 1935년에 우리들의 상급자들에 의해 인가된 기법에 의해서였다.]

유란시아 책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20 편 미가엘의 유란시아 증여

120:0.1 (1323.1) 계시 위원회의 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는 나멜기세덱은, 미가엘이 필사 사람육신의 모습으로 유란시아에 왔을 때의 일생을 다시 기술하는 일을 감독하고, 창조자 아들이 그에게 주어진 우주로의 마지막 증여 위상에 착수하기 위해 유란시아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의 몇 가지 특정한 사건들을 밝힐 권한을 가브리엘로부터 위임 받았다. 그가 자신이 창조한 지능존재들을 찾아서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창조체들 속에 그 자신을 증여하는 것은, 모든 창조자 아들들이 그의 자아-제작의 사물과 존재들의 우주에 대해 충분하고 그리고 최극의 통치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代價)이다.

120:0.2 (1323.2) 내가 지금 기술하고자 하는 사건들 이전에, 네바돈의 미가엘은 그가 창조한 다양한 지능창조체들 중에서 여섯 가지 다른 계층들과 흡사한 모습으로 이미

여섯 번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 주었었다. 그런 후에 그는 그의 지능적인 의지적 창조체들 중 가장 낮은 계층인 필사 사람 육신의 모습으로 유란시아에 내려가기 위해, 그리고, 그 영역의 그러한 한 인간으로서, 우주들의 우주의 신성한 파라다이스 통치자들의 명령에 따라 우주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를 하였다.

120:0.3 (1323.3)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증여들 각각의 그 과정에서 미가엘은 자신이 창조한 존재들 중 한 집단의 유한한 체험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더 큰 공헌을 하게 될 파라다이스 협력체 안에서, 자아-제작한 우주의 주권을 그에게 성립시키는 일에 한 걸음 더 기여하게 될 파라다이스 협동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체험도 함께 획득하였다. 지역우주의 지나간 모든 과거 시간에 있어서, 미가엘은 어느 순간에라도 창조자 아들로서의 개인적 주권을 주장할 수 있었고, 그는 자신이 선택한 방법에 따라서 창조자 아들의 자격으로 자신의 우주를 통치할 수 있었다. 그러한 사건 안에서는, 연관-동료인 다른 파라다이스 아들과 임마누엘은 우주로부터 떠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미가엘은, 창조자

아들로서, 단순히 그 자신의 고립된 권한만을 가지고 네바돈을 통치하는 것은 원치 않았다. 그는 언젠가 최극존재의 고양된 통치의 특징이 될 통찰력의 완전성과 실행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우주들을 통치하고 그것의 관련사들을 관리-운영할 분별화된 우주 지위상의 그러한 높은 경지까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대한 협동적 순종 속에서 실재 체험을 통하여 올라가기를 원하였다. 그는 창조자 아들로서의 통치의 완전성이 아니라, 최극존재의 우주 지혜와 신성한 체험의 체현을 이룸으로서, 관리-행정의 최극위를 열망하였다.

120:0.4 (1324.1) 따라서, 미가엘은 그의 우주 창조체들의 다양한 계층들에게 이 일곱 번 증여를 이룩함에 있어서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로, 그는 모든 창조자 아들들이 완벽한 주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요구되는 창조체 납득에 있어서의 체험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창조자 아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고유한 권한으로 그의 우주를 통치할 수 있지만, 그는 오직 일곱 차례의 우주-창조체 증여들을 모두 마친 후에야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최극 대표자 자격으로 통치할 수 있다. 둘째로, 그는 지역우주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리-행정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최대 권한을 대표하는 특권을 원하였다. 따라서 미가엘은 각각의 우주적 증여 기간을 체험하는 동안,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개인성들로 구성된 다양한 관계적-연합들에 의해 다양하게 조성된 뜻들에 대하여, 성공적이고 만족스럽게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종속시키실 수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첫 번째 증여에서는 아버지, 아들과 영의 관계적-연합된 뜻에; 두 번째 증여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뜻에; 세 번째 증여에서는 아버지와 영의 뜻에; 네 번째 증여에서는 아들과 영의 뜻에; 다섯 번째 증여에서는 무한한 영(靈)의 뜻에; 여섯 번째 증여에서는 영원한 아들의 뜻에; 그리고 일곱 번째이자 최종적인 증여인 유란시아에서의 증여가 있을 동안에는 우주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였다.

120:0.5 (1324.2) 그러므로, 미가엘은 그의 개인적 주권 안에, 자신의 지역우주 창조체들에 대한 압득하는 체험과 우주적 창조자들의 칠중 위상들의 신성한 뜻을 병합시켰다. 그렇게 해서, 그의 관리-행정은 모든 임의적인 권력 인수는 상실하였을지라도, 최고로 가능한 힘과 권한을 대표하게 되었다. 그의 힘이 무제한적인 것은

파라다이스 신(神)들과의 체험적인 관계적-연합으로부터 유래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권한은 우주의 창조체들과의 유사한 실재적 체험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의 주권은 파라다이스 신(神)의 일곱 단계 관점과, 시간과 공간 세계에 속한 창조체들의 관점을 동시에 하나로 체현한 것이므로 최극이다.

120:0.6 (1324.3) 마지막 증여의 시기가 결정되고 이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게 될 행성이 선택되자, 미가엘은 가브리엘과의례적인 증여준비 회의를 가졌으며, 그러고 나서 그의 형이자 파라다이스의 조연자인 임마누엘 앞으로 나아갔다. 미가엘은 이제 가브리엘에게 이미 주어지지 않은 우주 관리-행정의 나머지 모든 힘들을 임마누엘의 보호관리에 배속시켰다. 미가엘이 유란시아 육신화를 위해 떠나가기 바로 직전에, 임마누엘은 그의 유란시아 증여 기간 동안 그의 우주의 보호관리를 수락하면서, 미가엘이 곧 유란시아에서 그 세계의 필사자로서 현시적으로 성장하게 될 때 그의 육신화 과정의 안내 역할을 하게 될 증여 위원회에게 증여의 조연을 계속하였다.

120:0.7 (1324.4) 이것과 관련해서, 미가엘이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이 증여를 수행하기로 선택하였던 것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창조자 아들이 오직 우주의 주권 획득만을 위해서였다면 이 육신화를 실행하기 위하여 누구로부터도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그는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다양한 뜻과의 협동적 역할이 포함된 최극자의 계시 계획에 이미 동참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취하게 되면, 그의 주권은 최극자 안에서 최고조에 도달하면서 신(神)의 칠중(七重) 의지를 모두 실재적으로 포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가 이전에 가졌던 여섯 차례의 증여는 다양한 파라다이스 신(神)들과 그들의 관계적-연합의 개인적 대표자들에 의해 지시를 받았었다; 이제는 우주 아버지를 대신하여 네바돈 지역우주에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대사로 일하는 연합으로 늘 계신이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120:0.8 (1325.1)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뜻에, 이번에는 우주 아버지의 뜻에 한 번 더 자발적으로 종속하였던 이 위대한 창조자 아들의 자진하는 마음의 결과로, 즉각적인 유익과 커다란 보상이 주어졌다. 그러한 연관에 따르는 순종을 해

내려는 이 결정에 의해, 미가엘은 그의 육신화에서 필사 사람의 본성뿐만 아니라, 만유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까지도 체험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더욱이, 그는 자신이 유란시아 증여로 자리를 비운 동안에 그의 우주를 임마누엘이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총만한 권한을 가지고 관리-행정을 행사할 것이라는 완벽한 확신뿐만 아니라, 또한 초우주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들 역시 그 전체 증여 기간에 두루 그의 영역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위안을 주는 지식을 가지고 이 독특한 증여 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120:0.9 (1325.2) 그리고 이것이 임마누엘이 일곱 번째 증여 위원회에 출두했을 때 있었던 중대한 상황의 배경이었다. 그리고 후에 유란시아에서 나사렛 예수(그리스도 미가엘)가 된 우주의 통치자가 증여되기 이전에, 임마누엘이 그에게 지시한 것으로부터, 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밝힐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제 1 장. 7차 증여 임무

120:1.1 (1325.3) “나의 창조자 형제여, 나는 너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증여를 지켜보려고 한다. 너는 이전의 여섯 차례의

임무를 매우 신실하고 완전하게 잘 실행하였으며, 나는 네가 이번의 최종적인 주권 증여 역시 똑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데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 이제까지는 네가 선택한 그 부류의 충만하게 성숙된 존재로서, 증여될 그 구체에 나타났었다. 이제 너는 너의 선택에 의해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행성인 유란시아에, 충만하게 성숙된 필사자로서가 아니라 어떤 도움도 없는 한 아기의 모습으로 네가 나타나게 되었다. 나의 동지여, 이는 네게는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체험이 될 것이다. 너는 증여에서의 충분한 대가를 치르려는 것이며, 창조자가 창조체들과 같은 형상으로서 육신화 안에서 완벽한 깨우침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다.

120:1.2 (1325.4) “이전에 네가 증여되었던 각각의 경우에 두루, 너는 세 분의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뜻과 그들의 신성한 상호-연관들에게 너 자신을 복종시킬 것을 자발적으로 택하였었다. 전에 있었던 너의 증여들에서 너는 최극자의 뜻의 일곱 위상들 중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개인적 뜻을 제외한 전체에 복종해 왔다. 이제 네가 일곱 번째 증여에 두루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할 것을 선택하였기에, 나는 우리 아버지의 개인적 대리자로서, 너의 육신화 기간

동안 너 대신 너의 우주에 대한 분별불가적 관할권을
맡는다.

120:1.3 (1325.5) "유란시아에서의 증여에 들어감에 있어서, 너는
네가 창조한 어느 창조체에게든지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초(超)행성적 지원과 특별한 도움을 자진해서 거부하였다.
네바돈에 속하는 네가 창조한 자녀들이 그들의 우주
생애에 두루 안전한 행위성을 위하여 네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이제는 너의 이어지는 필사자 생애의
드러나지 않은 변화들에 두루 안전한 행위성을 위하여
너의 파라다이스 아버지께 전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이 증여의 체험을
완결하게 될 때에는, 네가 그들의 지역우주의 창조자이자
아버지로서, 네 모든 창조체들이 너와의 친밀한 관계를
완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들에게 네가 그토록 한결같이
요구하는 신앙-신뢰의 귀중하고 풍요로운 의의(意義)와
선명한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120:1.4 (1326.1) "너의 유란시아 증여에 두루, 너는 오직 한 가지
일, 너와 파라다이스 아버지 사이의 중단되지 않는 교제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가 증여되는 그 세상, 더

나아가서는 네가 창조한 우주 전체가, 너의 아버지시며 나의 아버지이신 만유(萬有)의 우주 아버지에 대한 새롭고도 더욱 납득하기 쉬운 계시를 보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관계의 완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너는 오직 유란시아에서 지내는 개인적 일생과 관련한 일들만 염려하면 된다. 나는 네가 자발적으로 권한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네가 우주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파라다이스의 확인을 받고, 네가 지금처럼 내게 복종하는 대리자의 권한이 아니라 너의 우주에 대한 최극 힘과 관할권을 나의 지배로부터 돌려받을 때까지 너의 우주의 안전과 중단 없는 관리-행정을 충분하고도 효율적으로 맡아보는 책임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120:1.5 (1326.2) “그리고 내가 지금 약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도록 권한을 받았다는 것을 네가 확신을 가지고 알겠지만(내가 나의 말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사실은 파라다이스에서 확실하게 인정받고 있음을 충분히 잘 알면서), 너의 자발적 증여 기간에 두루 네바돈 안에서의 모든 영적 위험을 예방하게 될, 유버사에 있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명령이 방금 내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너에게 알린다. 필사 육신화가 시작됨에 따라, 네가 의식의 지배를

받는 그 순간부터, 너의 고유한 창조와 조직체의 이 우주에 대한 최극이고 무조건적인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돌아올 때까지, 네바돈 전역에서는 어떤 심각한 사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증여로 네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네바돈 우주에서 발생할 어떤 반란의 죄나 폭동을 부추기는 어떤 존재든지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제거하라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분별불가하게 내려진 명령을 지니고 있다. 나의 형제여, 나의 현존에 선천적인 그리고 유버사의 사법 명령권에 의해 증강된 파라다이스의 권한의 관점에서 볼 때, 너의 우주와 그것의 충성스러운 창조체들 전체는 네 증여 기간 동안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너는 오직 한 가지 생각—네 우주 안에 있는 지능존재들에게 우리 아버지에 대한 향상된 계시—만을 가지고 너의 임무를 진행해도 될 것이다.

120:1.6 (1326.3) "이전의 네 증여들 각각의 경우처럼, 나는 형제-수탁자로서 네 우주 관할권을 받은 자임을 네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나는 네 이름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모든 힘을 장악할 것이다. 나는 우리의 파라다이스 아버지가 하듯이, 그리고 내가 네 대신 그렇게 행하라는 너의 명백한 요청에 따라 활동할 것이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모든 위임된 권한을 되돌려 받아야 될 적당한 시기라고 네가 생각할 때에는 언제든지 다시 너의 것이 된다는 점이다. 너의 증여는 시종일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다. 그 세상에서 필사 육신화가 되었을 때 너는 천상(天上)에서의 자질들이 없는 상태이겠지만, 네가 우주의 권한을 다시 갖고자 결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양도하였던 너의 모든 힘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만약 네가 힘과 권한으로 네 스스로를 복귀하기로 선택했을 때에는, 이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적 이유들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나는 살아있는 그리고 최극의 약속이며, 나의 약속과 현존은 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네 우주의 안전한 관리-행정을 보증한다. 이번 증여를 위하여 네가 구원자별을 떠나 있는 동안에는, 네바돈에서 전에 세 차례 발생했던 그러한 반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란시아 증여 기간 동안, 네바돈에서의 반란은 그 속에 스스로 절멸되는 자동적 씨앗이 심어질 것이라고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명해 놓았기 때문이다.

120:1.7 (1326.4) “네가 최종적이고도 특별한 이 증여로 인해 자리를 비운 동안, 나는(가브리엘과 협동하여) 네 우주에 대한 신실한 관리-행정을 약속 한다; 내가 네게 이 신성한

게시의 임무를 착수하고 그리고 인간을 완전하게
납득하는 이 체험을 겪으라고 너에게 부탁하면서, 나는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며,
네가 땅에서 육체를 입고 계속 머무르는 그 신성한 임무에
관하여 진보적으로 자아-의식적이 될 때 땅에서의 네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를 인도하게 될 다음과 같은
조언을 너에게 준다:

제 2 장. 증여의 한계

120:2.1 (1327.1) "1. 아들별의 관례에 따라 그리고 그 기법과
일치하여—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의 명령에
순응하여—, 나는 너에 의해 수립되었고 가브리엘에 의해
나에게 제출되었던 그 계획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네가
즉시 이 필사자 증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방면에서
예비해 왔다. 너는 유란시아에서 그 세계의 어린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교육을 마치게 될 것이며—이
모든 기간 동안 너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의지에
따르면서—, 네가 결정한대로 유란시아에서의 일생을
살게 될 것이고, 행성에서의 짧은 일생을 마치게 될 것이며,
네 우주에 대한 최종 주권을 너의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이기 위해 그에게로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2. 너의 땅에서의 임무와 우주 계시와는 별도로, 그러나 두 가지에 부수적인 것으로써, 네가 너의 신성한 정체성을 충분히 자아-의식한 후에, 사타니아 체계에서의 루시퍼 반란을 기술적으로 종결시켜야 할 부가적인 임무를 네가 수행할 것과, 네가 사람의 아들이로서 이 모든 일을 행해야함을 나는 너에게 조언하는 바이다; 따라서 나는, 그 세계의 한 필사 창조체로써, 너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신앙-복종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연약함 안에서, 이 사악하고 부당한 반란이 시작될 때에 네게 자질로서 부여되었던 힘과 권세를 사용하여 완성시키기를 네가 임의적으로 계속 거절해 온 모든 것을 자비롭게 성취하기를 제안한다. 나는 네가 사람의 아들이로서, 유란시아의 행성영주로서, 그리고 네 우주의 초월적 주권자인 하느님의 아들이로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그것이야말로 네 필사자 증여의 절정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바돈에 있는 지능 창조체들 중에서 가장 낮은 유형인 한 필사 사람으로서, 칼리가스티아와 루시퍼를 만나 불경스러운 자만심에 대해 판결하고, 가정되어진 너의 낮은 신분으로, 이 타락한 빛의 자식들이 더 이상 치욕적인 오류를 범하지 못하도록 그 행위를

언제까지나 종결시키도록 하라. 너는 이제까지 창조자의 특권을 사용하여 이러한 반역자를 물리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해 왔었지만, 이제는 네가 창조체 중 가장 낮은 존재의 형상으로써, 이러한 타락한 아들들의 손에서 영토를 비틀어 빼앗아야 할 적절한 시기가 된 것이다; 그렇게 하여 자비가 너에게, 너의 독단적인 권한의 힘으로 행하지 않도록 하던 이러한 관련사들을 이제는 네가 필사자 육신의 역할로서 네가 행함에서 보인 공의를 너의 지역우주 전체가 너무나 공평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언제까지나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바돈에서의 최극자의 주권의 가능성을 너의 증여에 의해 이렇게 수립함으로서, 이 성취에서의 실현에 다소간의 시간적 지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앞서 있었던 내란에서의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모든 관련사들을 사실상 종결짓게 될 것이다. 이 행동으로 인하여, 너의 우주에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들을 실질적으로 청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뒤따라오는 너의 우주에 대한 최극 주권의 자질-부여와 함께, 너의 위대한 개인적 창조계의 어느 부분에서든지 너의 권한에 대한 유사한 도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120:2.3 (1327.3)

“3. 유란시아의 이탈을 네가 성공적으로 종결시키게 되면, 의심할 여지없이 그렇게 되겠지만, 나는 네가 너의 우주의 마지막 증여 체험을 하였던 네 우주에게 영원히 인식될 수 있는, ‘유란시아의 행성영주’라는 칭호를 가브리엘로부터 받기를 조언 한다; 그리고 너의 증여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칼리가스티아의 배반과 그 뒤를 이은 아담의-불이행으로 인한 유란시아의 슬픔과 혼란을 보상해 주기 위한 모든 일을 추가로 해주기 바란다.

120:2.4 (1328.1)

“4. 한 시대가 종결되고, 잠자고 있던 필사자 생존자들이 부활되며, 증여된 진리의 영의 섭리시대가 확립됨과 동시에, 그 영역에 대한 섭리시대적 심판의 공표와 함께 너의 유란시아 증여를 종결하기를 원한다는 명확한 욕구가 있을 때, 가브리엘과 모든 관계자들은 너의 요청에 따라 너와 협동할 것이다.

120:2.5 (1328.2)

“5. 네가 증여될 그 행성, 그리고 네가 육신의 상태로 머무르게 될 그 때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하여, 나는 네가 주로 선생의 역할을 하도록 조언한다. 우선, 필사자 영적 본성의 해방과 통찰력에 관심을 두어라. 다음으로는, 어두움에 처한 필사자 지성에 빛을 비추고,

그들의 혼을 치유하며, 오랫동안 얹매어 온 공포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해방시켜라. 그리고 나서는, 너의 필사자의 지혜에 따라 육신 속에 있는 네 형제들의 육체적 건강과 물질적 안녕을 돌보아 주도록 하여라. 너의 모든 우주에게 영감과 교화를 줄 수 있도록 이상적인 종교적 일생을 살도록 하여라.

120:2.6 (1328.3) "6. 네가 증여될 행성에서, 반란으로 분리된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유롭게 되도록 해 주어라. 유란시아에서 최극자의 주권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그리하여 네가 직접 창조한 광범위한 권역들 전반에도 이러한 주권 확립을 확장시켜라. 이것, 육신의 모습을 한 너의 물질적 증여에 있어서, 너는 인간 본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의지를 따르는 이원(二元)의 체험인, 시간-공간 창조자에 대한 최종적 깨우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일시적인 너의 일생 속에서 유한한 창조체들의 의지와 무한한 창조자의 의지가 하나가 되며, 그들은 최극존재의 진화하는 신(神)속에서도 결합될 것이다. 네가 증여될 행성에 진리의 영을 쏟아부어줄 것이며, 그리하여 그 고립된 구체에 있는 정상적인 모든 필사자들로 하여금 우리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분화된

현존, 그 세계에 있는 생각 조절자들의 사명활동에 즉시
그리고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라.

120:2.7 (1328.4) "7. 네가 증여될 그 세계에서 네가 수행할 모든
것에 있어서, 너는 너의 모든 우주에 대한 교육과 계몽을
위해 일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명심하라. 네가
유란시아에 이러한 필사 육신화의 일생을 증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너의 행정-관리적 권역에 속하는 광대한
은하계에 속하는 이미 형성되었거나 현재 형성도중이거나
앞으로 형성되어질 모든 거주 세계에서 이제까지
살았거나, 현재 존재하고 있거나, 혹은 아직 살고 있지 않은
모든 인간적 그리고 초인간적 지능체에 대한 영적 감화를
위한 그러한 일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필사 육신을 닮은
너의 지구 일생은, 너의 땅에서 머무는 그 시대에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을 위한 그리고 유란시아에 또는
다른 세계에 있는 인간 존재들의 어떤 후대 자손을 위한
모범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다가오는 시대들의 모든 세대에 두루
모든 네바돈 세계들의 생명체들에게 영감이 되도록
유란시아에서의 너의 육신적인 일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8. 필사 육신화 속에서 실현되고 체험될 너의 가장 큰 사명은, 너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전심으로 자극하는 일생을 살아가고 그리하여 육신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육체적 창조체들에게 너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계시하려는 너의 결정에 포용되어 있다. 동시에 너는 또한, 모든 네바돈의 초(超)필사 존재들에 대한 우리 아버지를 새롭게 강화하여, 해석할 것이다. 인간적 또는 초(超)인간적 형태의 마음에게 파라다이스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계시와 증강된 해석을 주는 이 사명활동과 똑같이, 너는 또한 인간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하느님께 제시하도록 또한 그렇게 활동하게 될 것이다. 너는 모든 네바돈에서 이전에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육신으로의 짧은 일생동안, 하느님을-아는 인간에 의해 필사자 실존의 짧은 생애동안에 달성될 수 있는 초월 가능성을 내 보이고,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곡절 많은 그의 행성 일생에 대하여, 새롭고도 빛나는 해석을 네바돈 전체 그리고 모든 시대의 초(超)인간적 지능들에게 해 주어라. 필사자의 몸을 입고 유란시아에 내려가 그 시대와 세대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너는 너의 전 우주에 너의 광대한 창조체들의 관련사에서의 최극 투쟁에서

완전해진 기법의 이상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이 사람을 찾아 발견하심과 사람이 하느님을 구하며 그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상호적 만족이 되게 하는 것과 한 번의 짧은 육신 속에서의 일생 동안에 그것을 하는 것이다.

120:2,9 (1329.1) "9. 나는 네가 사실상 세상에서 보통의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도, 잠재적으로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창조자 아들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경고한다. 이 육신화에 두루, 네가 비록 사람의 아들로써 살고 활동하게 될지라도, 너의 개인적 신성의 창조적 속성들은 구원자별로부터 유란시아까지 너를 따라갈 것이다. 생각 조절자가 네게 임하게 된 후에는 언제든지 그 육신화 과정을 종결시키는 일이 너의 의지적-힘 안에 항상 있게 될 것이다. 조절자가 도착하고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내가 너의 개인성 고결한-순수성을 보증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조절자가 도착하고 너의 증여 임무의 본성과 취지에 대한 점진적 인식이 이루어진 후에는, 너의 창조자 특권들이 너의 필사자 개인성과 연관하여 여전히 남아 있게 되리라는 사실에서 볼 때 너는 어떠한 초인간적-달성-의지나 달성 또는 힘을 자제하여야만 할 것인데, 왜냐하면

너의 개인적 현존으로부터 이러한 속성들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가 의식적이고 온전한 의지로서, 전반적인-개인성 선택으로 종결지으려는 외길의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는 한,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의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초(超)인간적 반향도 너의 지상 임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제 3 장. 이어진 조언과 충고

120:3.1 (1329.2) “나의 형제여, 그리고 이제, 네가 유란시아로 떠날 준비함에 따라 너를 떠나면서 그리고 너의 증여의 일반적인 행위성에 대하여 너에게 조언을 마치면서, 나는 가브리엘과 상담에서 도출된, 그리고 너의 필사자 일생의 사소한 위상들에 관한 어떤 조언들을 제시하고 싶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더 부가한다:

120:3.2 (1329.3) “1. 너의 필사자 지상 일생의 이상을 추구함에 있어서, 너는 동료 사람들에게 실천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것들을 실현하고 모범을 보이는 일에 역시 관심을 기울여라.

120:3.3 (1329.4) “2. 가족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너의 증여의 그 시대와 세대에 확립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가정 생활의 관습을 네가 발견한 그대로 따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네가 그 속에 나타나기로 선택한 민족의 실천 관행에 준하여 너의 가정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살아라.

120:3.4 (1329.5) "3. 사회적 질서에 대한 너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네가 주로 영적 재생산과 지적인 해방을 위한 일에만 주로 너의 노력을 한정시키기 바란다. 네가 있는 동안의 경제 구조나 정치적 공약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여라. 유란시아에서 이상적인 종교적 일생을 살아가는 일에 더욱 각별히 헌신하도록 하여라.

120:3.5 (1329.6) "4.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리고 아주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유란시아의 종족들의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적 진화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이, 긍정적 종교 윤리의 지속적이고 개선된 체계를 네가 떠난 후에 유란시아에 남겨 놓으려는 너의 노력을 제한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섭리시대적 아들로써 너에게는 그 세계 민족들의 영적이고 종교적인 지위를 향상시키는 일에 적합한 어떤 특권들이 부여되어 있다.

120:3.6 (1330.1) "5. 네가 적당한 것을 찾게 된다면, 유란시아에서 발견되듯이 존재하고 있는 종교와 영적 운동들에 너 자신을 정체성 확인하려 하겠지만, 조직화된 한 예배종파나 구체화된 종교나 또는 필사 존재들의 분리된 어떤 윤리적 집단화를 공식적으로 설립하는 일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피하도록 노력하라. 너의 일생과 가르침은 모든 종교와 모든 민족들에게 공통적인 유산이 되어야 한다.

120:3.7 (1330.2) "6. 유란시아의 종교적 믿음의 계속되는 진부한 체계들 또는 진보가 불가능한 종교적 충성심의 다른 유형들이 조성되는 일에 끝까지 네가 불필요하게 기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덧붙여 충고 한다: 네가 지구에 어떤 종류의 저술도 남기지 말라. 영구적인 물질들 위에 어떤 글도 남기지 말 것이다; 또한 너의 연관-동료들이 너의 육신을 모방한 어떤 형상들 또는 다른 비슷한 것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당부하여라. 네가 떠날 때, 땅에 우상이 될 만한 것은 아무 것도 그 행성에 남기지 않도록 하여라.

120:3.8 (1330.3) "7. 네가 남성의 정상적인 한 개별존재가 되어, 그 행성의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동안, 너는 결혼 관계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이 전적으로 바람직하고 너의 증여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아들별에서 내린 육신화 명령들 중 하나가, 파라다이스 기원의 증여 아들은 어떤 행성에도 인간 후손을 남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네게 다짐해 두어야만 하겠다.

120:3.9 (1330.4) "8. 다가오는 너의 증여에 관한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내주하는 조절자의 안내와, 인간을 인도하는 항상-제시되어 있는 신성한 영의 가르침, 그리고 유전적 자질로 물려받아 확대되는 너의 인간 마음의 이성-판단에 너를 맡기기로 할 것이다. 그러한 창조체와 창조자 속성들의 관계적-연합이 너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그 행성 구체들에서 사람의 완전한 일생을 살 수 있게 할 것인데, 이는 어떤 한 세계에서의(하물며 유란시아에서) 어느 한 세대에 속한 한 사람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는 데 필요한 그러한 완전함이 아니라, 너의 멀리-퍼지는 우주의 더욱 높이 완전해진 그리고 완전해지고

있는 세계들에서 평가되는 데 필요한 전적으로 그리고
최극으로 충만한 일생을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120:3.10 (1330.5) “그리고 이제, 지나간 모든 일들에서 내내
우리들을 지탱하여 주신 너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는
네가 우리를 떠나 너 자신의 개인성의 의식을 양도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형태로 육신화한 너의 신성한 정체성을
점차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리고 나서 네가
유란시아에서의 증여 체험을 모두 마치는 동안, 그리고
네가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아버지의 보좌 오른편으로
상승하게 될 때까지, 여전히 너를 인도하고 붙잡아 주시며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자별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네가 창조하고 봉사하며 완벽한
납득을 이룩한 너의 우주에 대해 초월적이고 무제한적인
주권을 가진 자로서 귀환하는 너를 환영하게 될 것이다.

120:3.11 (1330.6) “이제는 너를 대신하여 내가 다스린다. 나는 네가
유란시아로 일곱 번째이자 필사자 증여를 위해 가 있는
동안 모든 네바돈에 대하여 대리 주권으로 그들을 관장할
것이다. 그리고 가브리엘아, 나는 너에게, 이제 사람의
아들이 되려는 그가 사람의 아들이자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힘과 영광으로 내게 곧 돌아올 때까지 그의 안전을 맡긴다. 그리고 가브리엘아, 미가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의 주권자이다.

120:3.12 (1330.7) 그리고 나서 즉시, 집합된 전체 구원자별 현존에서, 미가엘은 우리들 가운데에서 사라졌으며, 우리는 그가 유란시아로의 증여 생애를 모두 마친 후에, 우주의 최극자이자 개인적 통치자로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그가 평소에 있던 자리에서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제 4 장. 육신화—둘을 하나로 만듦

120:4.1 (1331.1) 그리하여 자신들의 창조자-아버지가 이기적인 지배를 추구한다고 참소하고, 비굴한 창조체들의 현혹된 우주에 대한 비이성적인 충성 덕분에 창조자 아들이, 독단적이고 독재적으로 힘을 유지하고 있다고 암시하였던, 미가엘의 어떤 비열한 자녀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이제 사람의 아들이 되는 자아를-잊어버리는 봉사의 일생—항상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일생—으로 인하여, 언제까지나 침묵하게 되었으며 혼란되고 환멸을 느끼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120:4.2 (1331.2) 그러나 오류를 범하지 말라; 그리스도 미가엘은 진실로 이원(二元)-기원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이중 개인성은 아니었다. 그는 사람과 함께 관계적-연합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으로 육신화하는 하느님이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병합된 존재 바로 그러하였다. 그러한 납득할 수없는 관계에서 유일한 진보적 요소는, 하느님이면서 사람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진보적인 자아-의식적 실현과 (인간 마음에 의한) 인지였다.

120:4.3 (1331.3) 그리스도 미가엘은 진보적으로 하느님이 된 것이 아니다. 땅에서의 예수의 일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느님이 사람으로 변한 것이 아니다. 예수는—항상, 그리고 그 언제까지라도—하느님이며 동시에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치 세 존재들의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실체로서 한 분 신(神)인 것처럼 똑 같이, 이 하느님과 이 사람은 하나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이다.

120:4.4 (1331.4) 미가엘의 증여의 최극 영적 목적이 하느님에 대한 계시를 증진시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120:4.5 (1331.5)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은 기적적인 것들에 대하여 다양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우주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기적이란 거의 없으며, 그러한 것들 중에서 가장 경탄할만한 것은 파라다이스 아들의 증여라고 할 수 있다. 신성한 아들이,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너희의 세계 안에 그리고 그 위에 출현하는 것을 우리는 기적—우리의 납득 범주를 넘어서는 우주적 법칙의 작용—으로 여긴다. 나사렛 예수는 기적적인 사람이었다.

120:4.6 (1331.6) 모든 이러한 특별한 체험에 두루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는—일상적인 방법 안에서—언제나 신성한 행동의 일반적이고 자연적이며 믿을만한 방법으로 자신을 현시하기를 선택하였다.

제 121 편 미가엘이 증여된 시기

121:0.1 (1332.1) 나는 한 때 사도 안드레에게 소속되었던 2차 중도자이며, 유란시아 중도자 연합 형제회의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감독 밑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계층을 주관하는 우두머리와 기록을 담당하는 멜기세덱의 공동 후원을 받고 있으며, 지구 창조체들인 나의 계층에게

관찰되었던 그대로, 그리고 나의 일시적인 수호자관계에 있었던 인간 주체에게서 나중에 부분적으로 기록된 대로, 나사렛 예수의 일생에서의 활동행위에 대한 서술들을 기록으로 옮기도록 권한을 받았다. 안드레는 주(主)께서 글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세심하게 피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글로 쓴 서술의 사본을 여러 부 만드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예수의 다른 사도들 편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들의 작성이 엄청나게 지연되었다.

제 1 장. 그리스도 뒤 1세기의 서양 세계

^{121:1.1 (1332.2)} 예수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유란시아는 아담의-이후부터 당시까지의 모든 역사에서 알려진 적이 없고, 그 이후 어떤 시대에서도 체험하지 못했던 영적 사고와 종교적 삶의 부흥을 체험하고 있었다.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육신화 하였을 때, 세계는 창조자 아들의 증여를 위하여, 그 때까지 한번도 만연한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한번도 획득할 수 없었던 최적의 조건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들 시절 바로 앞 여러 세기들 동안에,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어가 서양과 근동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으며, 일부 서양의 본성과 일부 동양의 본성을 모두 지닌, 레반트인의 하나인, 유대인들은 어떤 새로운 종교를 동방과 서방 양쪽 모두에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그러한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배경을 활용하기에 가장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최적의 상황들은 지중해 세계에 대한 로마의 관대한 정치적 통치로 인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121:1.2 (1332.3) 이러한 세계적 영향에서의 전체적인 화합은 바울의 활동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바울 자신은 로마 시민이었던 반면에, 종교적으로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었고, 유대인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그리스 언어로 전파하였다.

121:1.3 (1332.4) 서양에서, 그 이전이나 그 이후 어느 때에도 예수의 시대와 같은 문명기는 없었다. 유럽의 문명은 아래의 세 가지 영향들 아래에서 통합되고 서로 조화-협동을 이루었다:

121:1.4 (1332.5) 1. 로마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체계.

121:1.5 (1332.6) 2. 그리스의 언어와 문화—그리고 어느 정도의 철학.

121:1.6 (1332.7) 3. 급속히 퍼져나간 유대인의 종교적 그리고 도덕적 가르침들의 영향력.

121:1.7 (1332.8) 예수가 태어났을 때,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은 하나로 통합된 제국을 이루고 있었다.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많은 주요 중심지들을 연결해 주는 양호한 상태의 도로들이 건설되었다. 바다에서는 해적들이 소탕되어, 무역과 여행이 크게 활발해지는 시대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었다. 유럽은 그리스도 이후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여행과 무역의 전성시대를 다시 맛보지 못하였다.

121:1.8 (1333.1) 그리스-로마 시대의 내부적인 평화와 외견상의 번영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대다수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과 빈곤 속에서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었다. 소수의 상위 등급들은 부유하였으나; 비참하고 가난에 쪼들리는 하위 등급들이 인간성에서의 일반서민을 이루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중산층이 없었다; 로마 사회 내에 그들의 모습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었다.

121:1.9 (1333.2) 확대되는 로마제국과 파르티아 국가들 간의 첫 번째 전쟁은 이 시기 직전에 종결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시리아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예수가 활동하던 시대에,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는 번영기에 있었고 비교적 평화를 누리고 있었으며, 서방과 동방에 있는 지역들과 많은 상업적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 2 장. 유대 민족

121:2.1 (1333.3) 유대인들은 고대의 셈족의 일원이었으며, 바빌로니아인, 페니키아인, 그리고 그 당시까지 로마의 적이었던 카르타고인 들도 셈족에 포함되어 있었다. 서기 1세기 전반 동안은 유대인들이 셈족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이었으며, 그들은 그 당시의 무역활동을 지배하고 조직화하는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을 우연히 점유하고 있었다.

121:2.2 (1333.4) 옛 국가들을 연결하는 많은 큰 간선도로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세 개의 대륙이 서로 만나고 교차되는 장소가 되었다.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이집트, 시리아, 그리스, 파르티아, 그리고 로마의 여행객이나 카라반들 그리고 집단들이 계속적으로

팔레스타인을 휩쓸고 지나갔다. 아득히 먼 옛날부터, 동방에서 오는 많은 대상들이 이 지역들 중 어떤 곳을 거쳐 지중해 동쪽 끝에 있는 미약한 항구로 통행하였으며, 그곳으로부터 선박들이 해로를 통해 화물을 서양의 전체 연해 지역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들의 행렬 중 반 이상이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의 작은 성읍을 통과하거나 그 근처를 경유해 지나갔다.

121:2.3 (1333.5) 팔레스타인이 유대교 문화의 본향이자 그리스도교의 탄생지이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여러 나라에 살고 있었으며, 로마와 파르티아 국가들의 전체 지역에서 무역을 하였다.

121:2.4 (1333.6) 그리스는 언어와 문화를 제공하였고, 로마는 도로와 통합된 제국을 건설하였지만, 흩어진 유대인들은 로마 세계 전 지역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200개 이상의 회당과 잘 조직된 종교적 공동체를 갖추고, 문화적 중심의 역할을 하였으며, 하늘의 왕국에 대한 새로운 복음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기초를 다졌고, 나중에는 이곳으로부터 전 세계의 변두리 지역까지 퍼져나갔다.

121:2.5 (1333.7) 각각의 유대인 회당은 이방인 신자들의 분파집단, “헌신적”이거나 아니면 “하느님을-두려워하는” 자들을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초기에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킨 일단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분파집단의 이 개종자들이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화려하게 장식된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문화와 상업 그리고 경배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안디옥에서 바울의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교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121:2.6 (1333.8) 예루살렘에서의 유대인 성전 경배 집중은, 그들의 유일신 사상이 존속되도록 하는 비결이자 동시에 그들을 양육하여 모든 나라들의 유일한 하느님이고 모든 필사자들의 아버지라는 새롭고도 확대된 개념의 세계로 그들을 보내 주시리라는 약속의 비결이었다. 예루살렘에서의 성전 예배봉사는, 이방의 국가 군주들과 인종적 박해자들의 계속되는 몰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 문화적 개념은 살아남아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21:2.7 (1334.1)

이 시기의 유대 민족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마카비와 그 직속 후계자들이 당대에 획득한 해방에 대한 영웅적인 공적을 기리면서, 상당한 정도의 자아-관리를 즐기고 있었으며, 더욱 위대한 해방자, 오랫동안 대망해 오던 메시아의 즉각적인 출현에 대한 기대로 활기에 넘쳐 있었다.

121:2.8

(1334.2)

유대인들의 왕국인 팔레스타인이 반(半)독립국가로서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시리아와 이집트를 잇는 팔레스타인대로 뿐만 아니라, 서양과 동양을 잇는 카라반 통로들의 서쪽 기착지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로마 정부의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로마는 레반트 지역에서 어떤 세력이 커져서, 장차 이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자신들의 계획이 방해받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셀류시드가 관할하는 시리아와 프톨레마이오스가 관할하는 이집트가 서로 배척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완충 지역으로, 팔레스타인을 분리되고 독립된 국가로 키우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었다. 작고 힘없는 유대인 집단이 이렇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북으로는 셀류시드에 배척되고 남으로는 프톨레마이오스에게 배척되면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파르티아가 강력한 세력이 부상하기 전에 이집트를 쇠퇴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셀류시드를 점차 약화시키려 했던 로마의 정책 때문이었다. 이러한 강력한 세력을 가진 주변의 정치적 조건으로 인하여 운 좋게도 해방과 독립을 누렸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므로 야훼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인종적 우월성의 태도는 결국에 가서 자신들의 영토를 점령해버린 로마의 통치를 도저히 견디어 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비참한 시기에 처했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지상 사명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다.

121:2.9 (1334.3) 예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별나게 걱정이 많고 의심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외국인이면서도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아부함으로써 유대지역에 대한 주권을 갖게 된 이두미아인 헤롯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헤롯은 히브리의 제사 의식들을 존중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야릇한 많은 하느님들을 섬기는 신전들을 계속 건축하였다.

121:2.10 (1334.4) 헤롯과 로마 통치자들 간의 우호적인 관계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온 세계를 안전하게 여행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점점 더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제국의 먼 지역들은 물론 다른 여러 동맹국들에게까지 하늘의 왕국의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스며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다. 또한 헤롯의 지배는 히브리와 그리스의 철학들이 더욱 융화되는 데에도 많이 기여하였다.

121:2.11 (1334.5) 헤롯은 케자리아 항구를 건설하였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팔레스타인이 나중에 문명세계의 교차점이 되었다. 그는 기원전 4년에 죽었으며,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의 유년 시절 그리고 사명활동 기간 동안, 그리고 기원후 39년까지 갈릴리와 페레아 지역을 통치하였다. 안티파스는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건축가였다. 그는 세포리에 중요한 무역중심지를 세운 것을 포함하여,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개축하였다.

121:2.12 (1334.6)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종교영도자들과 랍비라고 불리는 선생들로부터 호감을 사지 못하였다.

예수가 태어나실 당시의 갈릴리는 유대인의 지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인의 지역이었다.

제 3 장. 이방인의 형편

^{121:3.1 (1334.7)} 로마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가장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국내에 널리 퍼져있던 평화와 번영은 미가엘이 증여되는 데 있어서 매우 적합하였다. 그리스도 이후 첫 세기 동안 지중해 지역의 공동체 속에는, 다음과 같이 잘 조직된 다섯 개의 사회계급들이 있었다:

^{121:3.2 (1335.1)} 1. 귀족 계급. 돈과 힘을 쥐고 있는 상위등급으로 특권을 가진 지배계층.

^{121:3.3 (1335.2)} 2. 사업자 집단들. 부유한 상인들과 은행가들, 무역업자들—큰 규모의 수입, 수출업자들—과 그리고 국제적인 상인들.

^{121:3.4 (1335.3)} 3. 소수의 중산층 계급. 이 집단은 규모는 매우 작았지만,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었고 도덕적인 중추 역할을 하였으며, 교회는 이 집단들이 계속하여 다양한 생산과 교역을 하도록

장려하였다.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상인 등급에 속하였다.

121:3.5 (1335.4) 4. 자유 무산 계급.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거나 없는 집단.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자부심은 있으나 노예 노동자와 경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상위 등급들은 이들을 경멸하였으며, “자손을 번성시키는 목적” 이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여겼다.

121:3.6 (1335.5) 5. 노예들 로마제국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으며; 많은 자들이 우월한 개별존재였고, 자유 무산 계급으로, 혹은 상인 계급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신분을 향상시키는 통로를 재빨리 개척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예들은 평범하거나 열등한 상태에 있었다.

121:3.7 (1335.6) 우월한 국민들조차 노예가 된 것은 로마의 군사적 정복으로 인한 하나의 특징이었다. 노예에 대한 주인의 힘은 분별불가적 이었다. 초기의 그리스도교 교회는 주로 하층 등급들과 이러한 노예들로 구성되었다.

121:3.8 (1335.7) 우수한 노예들은 종종 임금을 받았으며 자신들의 수입을 저축하여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해방된 많은 노예들이 국가와 교회 그리고 상업세계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의 그리스도교 교회는 변형된 이 노예제도를 쉽게 용납할 수 있었다.

^{121:3.9 (1335.8)} 그리스도 이후 첫 세기 동안, 로마제국 안에는 널리 퍼져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없었다.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은 자신들이 우연히 태어난 그 집단 안에 소속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재능 있고 유능한 개별존재들에게는 낮은 계급에서 로마 사회의 높은 계급으로 상승할 수 있는 문이 언제나 열려 있었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계급에 만족하였다. 그들은 등급을 의식하거나 이러한 등급 구분이 그릇되거나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교는 억압받는 계층들의 고통을 개선시키는 그것의 목적을 위한 경제적인 움직임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121:3.10 (1335.9)} 여자들은 비록 팔레스타인에서의 제한된 지위에 비하여, 로마제국 전역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가족에 대한 헌신과 자연스러운 애정은 이방인 세계의 그것을 훨씬 초월했다.

제 4 장. 이방인의 철학

121:4.1 (1335.10) 도덕적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비해 어느 정도 열등하였으나, 보다 고상한 이방인들의 가슴 속에는 선천적인 선함과 잠재적인 인간 애정의 풍부한 토양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씨앗이 싹트고 자라나서 도덕적인 성격과 영적 성취에 대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었다. 이방의 세계는 그 때 네 가지의 중요한 철학들에 의해서 지배되었는데, 이들 모두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주의로부터 파생된 것이었다. 이 철학 학파들은 다음과 같다:

121:4.2 (1335.11) 1. 쾌락주의 학파. 이 학파는 행복 추구에 전념하였다. 상급의 쾌락주의자들은 감각적 무절제에 빠지지 않았다. 이 신조는 적어도 절망적인 숙명론으로부터 로마인들을 구원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사람들이 그들의 땅에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것은 무지몽매한 미신과 효과적으로 싸워나갔다.

121:4.3 (1336.1) 2. 금욕주의 학파. 금욕주의는 상위 계급 사람들의 우월한 철학이었다. 금욕주의자들은 통제하고 있는 이성-숙명이 모든 본성을 지배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사람의 혼이 신성한 것이라고 가르쳤으며; 물질적 본성을 갖는 악한 육체 속에 그것이 속박되어 있다고 가르쳤다. 사람의 혼은 자연적인 본성, 하느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통하여 해방을 성취할 수 있으며, 따라서 덕행은 스스로 보상을 가져오게 한다. 금욕주의는 이전의 어떤 순전한 인간의 철학체계도 초월하지 못하였던 숭고한 도덕성, 이상들로 상승하였다. 금욕주의자들은 “하느님의 자손”이 되겠다고 선언하였지만, 그를 알아내는 데에는 실패하였고 따라서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금욕주의는 하나의 철학으로 남아있게 되고; 종교가 되지못하였다. 그 추종자들은 우주적 마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들의 마음을 조율하려고 애썼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임을 직시하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글을 썼을 때, 그는 금욕주의에 상당히 의존되어 있었다.

121:4.4 (1336.2)

3. 견유(犬儒)학파. 견유학파는 그들의 철학의 자취가 아덴의 디오게네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갔지만, 그들의 교리들 대부분은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가르침들 중에서 남아있는 부분으로부터 유래되었다. 견유주의는 초기에는 철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종교였다. 견유주의자들은 적어도 자기들의 종교적-철학을 민주적인 체제로 만들었다. 별판에서나 시장에서 그들은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자신들의 신조를 설파하였다. 그들은 단순성과 선행을 가르쳤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도록 가르쳤다. 이러한 방랑하는 견유주의 전도자들은, 영적으로 배고픈 대중들이 나중에 그리스도교적 교리와 만날 수 있도록 많이 준비시켜 주었다. 그들의 대중 설교 계획은 바울 서신들을 주로 본 땀고 그것들의 문체와 흡사하였다.

121:4.5 (1336.3)

4. 회의주의 학파. 회의주의는 지식이란 그릇된 것이며 신념이나 믿음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순전히 부정적인 태도였으며 널리 전파된 적이 없었다.

121:4.6 (1336.4) 이러한 철학들은 반(半)-종교적인 것들이었다; 이것들은 종종 사람들을 활기 있게 하고 윤리적이며 고귀하게 만들기도 하였으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아마도 견유주의는 제외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은 강한 자들과 현명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향한 구원의 종교는 아니었다.

제 5 장. 이방의 종교들

121:5.1 (1336.5) 이전의 모든 시대를 통하여 종교는 주로 한 부족이나 또는 국가의 문제였으며; 개별존재에게 관심을 두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방 신들은 부족 또는 국가를 위한 존재였고, 개인을 위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한 종교 체계들은 보통 개인의 개별적인 영적 소망에 대한 만족을 조금도 잘 제공하지 못하였다.

121:5.2 (1336.6) 예수 시대에 서양의 종교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21:5.3 (1336.7) 1. 이교도 예배종파. 이것들 속에는 그리스와 라틴의 신화, 애국심, 그리고 전통이 뒤섞여 있었다.

121:5.4 (1336.8)

2. 황제숭배. 국가의 상징으로서 사람을 이렇게 신성화하는 것에 대하여 유대교인들과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매우 분개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로마 정부로 하여금 이 양쪽 교회들에 대하여 혹독한 박해를 가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121:5.5 (1337.1)

3. 점성술. 바빌론의 이 사이비 과학은 그리스-로마제국에 두루 종교로 발전하였다. 심지어 20세기 사람들도 이 미신적인 믿음으로부터 충분히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121:5.6 (1337.2)

4. 신비 예배종파. 그토록 영적으로 굶주린 세계에, 신비 예배종파들, 레반트 지역으로부터 생겨난 새롭고 낯선 종교들의 홍수가 덮쳐 들어왔었고 이들 종교들은 일반 대중들을 홀리게 만들고 그들에게 개별적 구원을 약속했다. 이들 종교는 급속하게 그리스-로마 세계의 하위 계층의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리스도교 가르침들, 신(神)에 대한 장엄한 개념을 제시하는, 광대하게 우월한 그리스도교 가르침들이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그리스도교 가르침들은,

부수적으로는 지식인에게 흥미를 이끄는 신학을, 그리고 무지하였지만 영적으로 굶주린 평범한 사람을 포함하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심오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121:5.7 (1337.3) 신비 종교들은 민족적 믿음들의 종말을 가져왔고, 수많은 개인적 예배종파들의 탄생으로 귀결되었다. 신비교는 수가 많았지만 모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121:5.8 (1337.4) 1. 어떤 신화같은 전설, 일종의 신비—그것으로부터 그 이름이 유래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비교는 미트라교의 가르침에 의하여 묘사되듯이 어떤 하느님의 일생과 죽음, 그리고 일생으로 되돌아오는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으며, 한동안 그리스도교의 바울의 떠오르는 예배종파와 동시대에서 함께, 경쟁자로 있었다.

121:5.9 (1337.5) 2. 신비교들은 국가와 인종을 초월한다. 그들은 개인적이고 우애적이었고, 종교적 형제신분과 수많은 교파적 사회를 나타나게 만들었다.

121:5.10 (1337.6) 3. 그들의 예배봉사는 화려한 입장 의식과 감동적인 성찬이 특징 이었다. 은밀하게 행해지는 그들의 의식과 예식은 때로는 무시무시하고 혐오스러운 경우도 있었다.

121:5.11 (1337.7) 4. 그러나 그들의 예식들의 본질이나 그것들의 지나친 정도가 어떠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이러한 신비교들은 하나같이 그것들의 신봉자들에게 구원, “악으로부터의 해방, 죽음 이후의 생존, 그리고 슬픔과 속박이 가득한 이 세상을 초월한 가장 행복한 세계에서의 항구적 일생”을 약속했다.

121:5.12 (1337.8)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과 이러한 신비교의 가르침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신비교의 대중적 인기는 생존에 대한 사람의 탐구가 있음을 계시하는 것이며, 그와 같이 개인적 종교와 개별적 정의에 대한 실제적 굶주림과 갈증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신비교가 이러한 소망을 적절하게 만족시키는 데에는 실패하였지만, 그들은 정말로 바로 뒤이어, 생명의 빵과 생명의 물을 이 세상으로 가져왔던 예수의 출현을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였던 것이다.

121:5.13 (1337.9) 바울은 널리 퍼져 있는 보다 나은 유형의 신비 종교들을 활용하고자 애쓰면서, 개종이 기대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르침들 중 일부분을 개작(改作)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들(그리스도교)이 바울에 의해 변형되었을지라도, 신비교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보다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훨씬 우월하였다:

121:5.14 (1337.10) 1. 바울은 도덕적인 대속(代贖)과 윤리적인 구원을 가르쳤다. 그리스도교는 새로운 생명을 지적하고 새로운 이상을 선포하였다. 바울은 마법적인 의식과 제의적인 매력들을 거부하였다.

121:5.15 (1337.11) 2. 그리스도교는 슬픔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존 본질성의 정의로운 성격 자질에 의하여 이어지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하는, 인간 문제의 최종적인 해답을 움켜쥔 하나의 종교를 출현시켰다.

121:5.16 (1338.1) 3. 신비교들은 신화에 기반을 두었다. 그리스도교는 바울이 가르쳤듯이, 하느님의 아들인

미가엘이 인류에게 증여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었다.

121:5.17 (1138.2) 이방인들 사이에서 도덕성은 종교나 철학과 반드시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에서는, 종교의 사제가 도덕적 일생도 역시 인도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일은 사람들에게 항상 발생하지는 않았다. 유대의 종교와, 그 뒤에 나타난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바울에 의해 나중에 발전된 그리스도교는, 한 손은 도덕 위에 다른 한 손은 윤리 위에 놓고 종교인들로 하여금 이 두 가지 일에 모두 어떤 관심을 가질 것을 주장하는, 첫 번째로 전 유럽에 퍼진 종교가 되었다.

121:5.18 (1138.3) 사람들이 이러한 미완성 철학체계와 복잡한 예배종파들에 의해 지배를 받아 혼란 속에 있던 그러한 인류 세대 속에, 예수가 팔레스타인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개인적 종교—하느님과의 아들관계—에 대한 자신의 복음을 제공하였다.

제 6 장. 히브리 종교

121:6.1 (1338.4) 기원전 1세기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의 종교적 사상은 그리스의 문화적 가르침들에 의해서, 심지어는 그리스 철학에 의해서 매우 많은 영향을 받아서 어느 정도 변형되어 있었다. 히브리 사상에 대한 동방 학파와 서방학파의 견해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대립이 이루어지던 중에, 예루살렘과 그 외의 서양과 레반트 지역은 일반적으로 서방식 유대인 즉 변형된 그리스 관점을 채택하였다.

121:6.2 (1338.5) 예수 시대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세 가지 언어가 통용되었는데: 보통사람들은 사투리가 약간 섞인 아람어를; 사제들과 랍비들은 히브리어를; 그리고 교육받은 계층과 상류층 유대인들은 대개 그리스어를 사용하였다. 초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히브리 경전은, 나중에 유대 문화와 신학에서 그리스파가 우세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같은 언어로 기록된 그리스도교 교사들의 작품들이 곧 출현하게 되었다. 유대주의의 부흥은 히브리 경전이 그리스어로 번역되는 때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나중에 바울의 그리스도교 예배종파가 동방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서방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결정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스화된 유대인의 믿음은 쾌락주의학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의 철학과, 금욕주의자들의 자아-포기 교리로부터 현저하게 영향을 받았다. 금욕주의에 의해 크게 잠식당하였다는 사실은 마카비서의 제4권에 잘 나타나 있으며: 플라톤의 철학뿐만 아니라 금욕주의의 교리 역시 침투해 있었다는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서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스화된 유대인들은 히브리 경전에 대해 이러한 우화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존경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히브리 신학에 접목시키는 일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알렉산드리아의 필로가 그리스 철학과 히브리의 신학을 간단하고 비교적 모순이 없는 종교적 신앙과 실천의 체계로 조화시키고 체계화하여 이 문제들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극도의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예수가 살아 있으면서 가르치던 시기에, 팔레스타인에는 이러한 그리스 철학과 히브리 신학이 합쳐진 후대의 가르침이 성행하고 있었으며, 바울은 이를 좀 더 진보적이고 깨우치는 그리스도교 예배종파를 세우기 위한 기초로 활용하였다.

121:6.4 (1338.7) 필로는 위대한 선생이었다; 모세 이후 서양 세계의 윤리적 그리고 종교적 사상에 그토록 깊은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었다. 윤리적인 가르침과 종교적인 가르침이라는 동시 발생적 체계들 속에서, 보다 훌륭한 요소들을 결합한 일곱 명의 탁월한 인간 선생들을 꼽자면, 셋타드, 모세, 조로아스터, 노자, 부처, 필로, 그리고 바울이 해당된다.

121:6.5 (1339.1) 필로의 모순점들 중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은, 그리스의 신비철학과 로마의 금욕주의 교리를 형식에 매인 히브리 신학에 병합하려는 노력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는데, 이 점을 인식한 바울은 그리스도교가 형성되기 이전의 그의 기초 신학에서 이러한 문제를 현명하게 제거하였다. 필로는 유대 신학 안에 오랫동안 잠재해 오고 있던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개념을 완벽하게 회복시켜줄 수 있는 길로 바울을 인도하였다. 바울이 알렉산드리아의 이 부유하고 교육받은 유대인 필로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였거나 또는 그의 가르침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속죄에 관한 교리였는데; 필로는 오직 피를 흘림으로써만 용서를 받는다는 교리로부터 해방을 가르쳤던 것이다. 또한 그는

생각 조절자의 실체와 현존에 대해 바울이 알고 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울의 원죄(原罪) 이론, 유전적인 죄와 타고난 악 그리고 그것들로부터의 속죄에 관한 교리는, 부분적으로 미트라 숭배에서 기원된 것이었으며, 히브리 신학이나 필로의 철학 또는 예수의 가르침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원죄와 속죄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들 중에서 어떤 형태들은 바울 자신이 만들어 낸 것이었다.

121:6.6 (1339.2) 이 세상에서의 예수의 일생을 기록한 것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요한복음은, 서방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필로의 가르침들도 동시에 따르고 있던 후대의 알렉산드리아 그리스도교인 들의 관점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121:6.7 (1339.3) 그리스도의 시대 무렵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상한 나쁜 감정이 다시 발생해서, 전에 유대인들의 근거지였던 이곳으로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지독한 박해의 물결이 시작되어 로마에까지 퍼지게 되었으며, 그곳으로부터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추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운동들은 오래가지

않았다; 황제가 통치하는 정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국 전역의 유대인들에게 빼앗은 해방을 충분히 회복시켜 주었다.

121:6.8 (1339.4) 무역이나 혹은 박해로 인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성전을 가슴 중심부에 간직하고 있음으로써 하나가 되었다. 유대인들의 신학은, 바빌로니아 선생들이 때때로 개입함으로 인하여 잊힐 뻔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해석되어지고 실천되어 왔던 그대로 유지되었다.

121:6.9 (1339.5) 흩어져 살고 있던 이백 오십 만 명이나 되는 많은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종교 축제들을 축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동방(바빌로니아)의 유대인들과 서방(그리스)의 유대인들이 신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예루살렘이 그들의 경배의 중심이라는 것, 그리고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늘 기대하는 데에 의견이 같았다.

제 7 장. 유대인과 이방인

121:7.1 (1339.6) **예수가 왔을 무렵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운명에 대해 확고한 개념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과 이방세계 사이에 견고한 벽을 쌓아 놓고 있었다; 이방인들의 방식은 무엇이든지 심하게 경멸하였다. 그들은 글자 그대로 율법을 경배하였으며 자신들의 혈통에 대한 그릇된 자부심에 근거하여 자아-정의로운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에 대하여 이미 여러 선입견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이러한 기대들 대부분은 그들의 나라와 민족 역사의 한 부분으로 오는 메시아를 상상하였다.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유대 신학은 돌이킬 수 없도록 정착되어지고 언제까지나 고정된 상태였다.**

121:7.2 (1339.7) **관용과 친절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과 실천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간주하는 다른 민족들에 대해 그들이 오랫동안 품어온 태도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키워온 외부 세계에 대한 태도는, 사람들의 영적 형제애에 대한 주(主)의 가르침을 받아들이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야훼를 똑같이 공유하는 것을 싫어하였으며, 따라서**

이렇게 새롭고 생소한 교리를 가르치는 자를 하느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121:7.3 (1340.1)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직자들이 유대인들에게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라는 무서운 굴레로 씌워 놓았는데, 이러한 굴레는 실제로 로마의 정치적 규제보다도 더 엄한 것이었다.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복종 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들의 요구에 노예처럼 속박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그들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생활의 모든 권역을 일일이 간섭하고 침범하고 있었다. 이러한 세세한 행위성 규칙들은 모든 충실한 유대인들을 지배하였으며, 그들이 신성한 전통을 무시하거나 오랫동안 받들어 온 사회 행위성의 규율을 감히 경멸하는 그들의 동료들 중 하나를 즉시 제거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이 직접 제정했다고 믿고 있던 독단들과 충돌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선의로 보아줄 수가 없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던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손상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121:7.4 (1340.2) 그리스도 이후 1세기까지, 명망 있는 선생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율법에 대해 말로 해석한 내용이 문자화된 율법 그 자체보다 더욱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몇몇 종교 영도자들은 유대인들이 새로운 복음을 배척하도록 묶어둘 수 있었던 것이다.

121:7.5 (1340.3) 이러한 상황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자유와 영적 해방에 대한 새로운 복음의 메신저들로서의 그들의 신성한 운명을 완수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전통의 족쇄를 부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예레미야는 “사람의 가슴에 기록되어진 율법”을 이야기하였고, 에스겔은 “사람의 혼 속에 거할 새로운 영”을 말하였으며, 시편 기자는 하느님에게 “깨끗한 가슴을 창조하시고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선행을 강조하고 율법의 노예가 된 유대 종교가 전통적 타성의 침체에 희생자로 전락하였을 때, 종교적 진보의 물결은 서쪽의 유럽인들에게로 옮겨갔다.

121:7.6 (1340.4) 그리하여 하나의 진보된 신학, 그리스인들의 철학, 로마인들의 법, 히브리인들의 도덕성,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바울에 의해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개인성의 존엄성과 영적 해방에 대한 복음 등을 체현하는 하나의 교육 체계를 세계로 전파하는 일에 다른 민족이 요청 받게 되었다.

121:7.7 (1340.5) 바울의 그리스도교 예배종파는 그것의 도덕성이 유대로부터 왔다는 흔적을 보여주었다. 유대인들은 역사를 하느님—일하는 야훼—의 섭리로 여겼다. 그리스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 보다 확실한 개념들을 그 새로운 가르침 속에 전해주었다. 바울의 교리들은 신학과 철학적 면에서 예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플라톤과 필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윤리적 면에 있어서, 그는 예수뿐만 아니라 금욕주의자들에게서도 영감을 받았다.

121:7.8 (1340.6) 바울의 안디옥 그리스도교 예배종파에서 체현되었듯이, 예수의 복음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들과 융합되었다:

121:7.9 (1340.7) 1. 유대주의로 개종한 그리스인들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들의 개념들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철학적 논법.

121:7.10 (1340.8) 2. 널리 퍼져 있던 신비교들의 매혹적인 가르침들, 특히 어떤 하느님이 희생됨으로써 이루어진 대속, 속죄, 그리고 구원에 대한 미트라 숭배의 교리들.

121:7.11 (1340.9) 3. 이미 확립된 유대 종교의 완강한 도덕성.

121:7.12 (1341.1) 예수 시대에, 지중해의 로마제국과 파르티아 왕국 그리고 인접된 지역의 민족들은 모두, 세계 지리와 천체 연구 그리고 신체 상태와 질병 등에 대해 아주 미숙하고 원시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사렛의 목수인 예수의 새롭고 놀라운 선언을 듣고 그들이 놀란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선한 영과 나쁜 영을 소유한다는 관념은, 단순히 인간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바위와 나무도 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이 시대는 마법이 성행하던 때였으며, 모든 사람들은 기적이 보통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

제 8 장. 이전에 쓰인 기록들

121:8.1 (1341.2) 우리는 유란시아에서의 예수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 기존의 기록들이 우리의 임무와 모순되지 않는 한,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조화-협동시켜

보려고 노력하였다. 우리는 분실된 사도 안드레의 기록을 읽어 볼 수 있는 기쁨도 누렸고, 미가엘이 증여되었던 기간 동안 지상에 있었던 다양한 우주적 존재들의 (특히 그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였다.

121:8.2 (1341.3) 이 신약성경의 기록들은 다음과 같은 배경 속에서 작성되었다:

121:8.3 (1341.4) 1. 마가복음. 요한 마가는 예수의 일생에 관하여 가장 최초로 (안드레의 단편적인 기록을 제외하고는) 가장 짧고 가장 단순하게 기록하였다. 그는 주(主)를 한 사람의 섬기는 자,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한 사람으로 소개하였다. 마가는 자신이 서술한 장면들 중에서 많은 경우에 한 소년으로서 그 현장 주변에 있었지만, 실체 안에서 그의 기록은 시몬 베드로에 의해 만들어진 복음서이다. 그는 처음에는 베드로와;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활동하였다. 마가는 베드로의 부탁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의 간곡한 청에 의해 이것을 기록하였다. 마가는 주(主)가 땅에서 사신 동안 자신의 가르침들을 글로

남기는 것을 얼마나 원하지 않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과 다른 수제자(首弟子)들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기를 주저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러한 기록된 이야기가 필요함을 느꼈으며, 마가는 그 일의 준비를 담당하기로 동의하였다. 그는 베드로가 서기 67년에 죽기 전까지 간단한 기록들을 많이 만들었으며, 베드로가 승인한 전체적인 윤곽에 따라서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베드로가 죽은 직후부터 이 기록을 쓰기 시작하였다. 이 복음서는 서기 68년 말경에 완성되었다. 마가는 순전히 자신과 베드로의 기억에 의존하여 글을 썼다. 그 기록은 그 후에 상당히 많이 변경되었는데, 수많은 구절들이 삭제되고 후대의 문서들 일부가 끝 부분에 삽입되어 복음서 원형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후반부 부분을 대치하였으며, 최초의 원본에 있었던 그 부분은 사본이 만들어지기 전에 유실되었다. 안드레의 초고와 마태의 초고와 함께, 마가의 이 기록은 예수의 일생과 가르침을 그려내려고 하였던, 후에 기록된 모든 복음서들에게 성문화된 기초 역할을 하였다.

121:8.4 (1341.5) 2. 마태복음. 소위 마태에 의한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 복음서는 유대인 그리스도교인 들을 교화시키기

위하여 씌어진, 주(主)의 일생에 관한 기록이다. 이 기록의 저자는 예수의 일생 속에서 그가 행한 대부분의 사건이 “예언자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말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일관된 노력을 견지하였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크게 신뢰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한다.

121:8.5 (1341.6) 사도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쓰지 않았다. 마태의 제자들 중 하나인 이사도르가 이것을 기록하였는데, 그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들에 대한 마태의 개인적 기억뿐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직후에 이사도르 자신이 그의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들의 도움도 받았다. 마태가 기록한 것은 아람어로 되어 있었다; 이사도르는 그리스어로 기록하였다. 이 글을 마태의 작품이라고 공언함에 있어서 속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자들이 자기 스승에게 경의를 표하는, 당시의 관습이었다.

121:8.6 (1342.1) 마태의 기원적 기록은 서기 40년,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복음전도의 전파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편집되고 첨가되었다. 그 기록은 사적인 것이었으며, 마지막 사본이 서기 416년 시리아의 수도원 화재 때 소실되었다.

^{121:8.7 (1342.2)} 기원후 70년 티투스 장군의 무리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이사도르는 마태의 단편적인 기록들을 가지고 도시를 빠져 나와 펠라로 도피하였다. 서기 71년, 펠라에 거하면서 이사도르는 마태의 단편적 기록들에 의거하여 복음서를 기록하였다. 그는 또한 마가의 기록 중 5분의 4에 해당하는 첫 부분을 갖고 있었다.

^{121:8.8 (1342.3)} 3. 누가복음. 피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에 의해서 개종된 이방인이었는데, 그는 주(主)의 일생에 관하여 매우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그는 서기 47년 바울을 추종하기 시작하면서 예수 일생과 가르침에 대하여 배웠다. 누가는 바울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부터 이 사실들을 수집하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에 대해 많이 기록하여 보관하였다. 그는 주(主)를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 묘사하였다. 그는 바울이 죽기 전에는 자신의 많은 단편적 기록들을 복음서로 조직화시키지 않았다. 누가는 아카이아에서

82년에 기록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에 관한 역사를 다루는 세 권의 책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완결하기 직전인 서기 90년에 죽었다.

121:8.9 (1342.4) 복음서의 편집을 위한 재료로서, 누가는 처음에는 바울이 자기 체험과 관련시켜 말하였던 예수의 일생에 대한 자료에 의존했었다. 따라서 누가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바울에 의한 복음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는 다른 정보들도 갖고 있었다. 그는 예수의 일생 가운데에서 여러 에피소드들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기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5분의 4에 해당하는 첫 부분의 마가복음 사본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사도르의 글들과, 그리고 서기 78년 안디옥에서 세데스라는 한 신자(信者)가 쓴 간단한 기록도 가지고 있었다. 누가는 또한 사도 안드레의 것으로 여겨지는, 종합적이고 많이 편집된 단편적인 기록들의 사본도 갖고 있었다.

121:8.10 (1342.5) 4. 요한복음. 요한의 복음서에는 다른 기록들에서는 볼 수 없는,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근방에서의 예수의 활동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에 의한 복음서라고 불렸으며, 비록 요한이 직접 복음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의 영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이 복음서가 첫 번째로 쓰인 이후, 요한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보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편집되었다. 이 기록이 작성되었을 때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을 갖고 있었고,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그는 서기 101년에 케자리아에서 온 그리스 유대인인 자기 친구 나단을 설득하여 이것을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요한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재료들을 그에게 제공하였고 이미 쓰인 세 권의 기록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요한 자신이 직접 쓴 기록은 없었다. "요한1서"라고 알려진 서신서는 그가 직접 쓴 것이었는데, 그것은 그의 지도에 따라 나단이 기록한 작품의 서언(序言)에 해당하는 편지였다.

121:8.11 (1342.6) 이 저자들 모두는 예수의 모습을 보았던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혹은 그에 대하여 배운 대로 정직하게 기록하였으며, 오래 전에 있었던 이 사건들은 나중에 지지를 받게 된 바울의 그리스도교 신학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기록들은 불완전한 것이기는 하지만, 거의

2,000년 동안 유란시아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121:8.12 (1343.1) [감사의 글: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을 다시 진술하고 활동을 다시 서술하는 나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나는 기록된 모든 자료들과 행성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였다. 나는 이 기록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세대들을 깨우치는 것 뿐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요 동기를 두었다. 내가 사용할 수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모든 정보들로부터,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정보들만을 선택하였다. 나는 가능하다면 순전히 인간 근원으로부터 나의 정보를 도출하였다. 그러한 근원이 없을 경우에만, 초인간적인 기록들에 의지하였다. 예수의 일생과 가르침에 대한 관념과 개념들이 인간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표현되었을 때, 나는 명백하게 그러한 인간의 생각 원형틀을 반드시 우선하였다. 주(主)의 일생과 가르침의 실제 의미와 진정한 뜻에 대한 우리의 개념과 잘 맞을 수 있도록 단어 표현을 조절하려고 내가 애를 쓰기는 하였지만, 나의 모든 서술을 가능한 한 실재적인 인간의 개념과 생각 원형틀을 고수하여 왔다. 나는 인간 마음에

기원을 두고 있는 이런 개념들이, 모든 다른 인간 마음에도 또한 받아들여 질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잘 안다. 인간의 기록이나 인간의 표현에서 필요한 개념을 찾아 낼 수 없는 경우에만, 나는 내가 소속된 계층이며 땅의 창조체들인 중도자들의 기억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2차 근원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주저하지 않고 정보에서의 초(超)행성적 근원에 의존했다.

121:8.13 (1343:2) 내가 수집해 온,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예수의 일생과 가르침에 관한 이 서술을 준비하였던 메모들—사도 안드레의 기록으로부터의 기억을 제외하고—은, 예수가 왔던 날부터 이 계시들, 더욱 정확하게 다시 진술된 기록이 쓰인 시기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2,000명 이상의 인간 존재들로부터 수집된 주옥같은 생각들과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우월한 개념들을 포용하고 있다. 인간의 기록과 인간 개념이 적절한 생각 원형틀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계시적 허용이 활용되어 왔다. 내가 소속된 계시 위원회는, 내가 순수한 인간들로부터는 필요한 개념적 표현을 찾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는 내가 인간의 범위 밖에

있는 어떤 정보나 개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였다.

121:8.14 (1343.3) 나는 나의 11명 연관-동료 중도자들의 도움과 기록 담당 멜기세덱의 감독 하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로 한 나의 선택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의 효력적인 배열에 대한 나의 개념에 맞도록 이 이야기를 표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여 활용한 그 관념들 대부분 그리고 심지어 효력 있는 표현들 중 일부분은, 이 일이 시작될 때 아직 살아있던 자들에 이르기까지, 개입된 그 세대들 동안에 걸쳐 지구에 살았던 여러 인종들의 사람들의 마음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들이었다. 나는 대부분의 경우, 나 자신이 직접 이야기 했다가보다는, 오히려 정보를 수집하고 편집을 하는 자의 역할을 하였다. 나는 인간의 개념들과 관념들을 더 적극적으로 채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그것들은 나로 하여금 예수의 일생에 대한 가장 효과있는 인물묘사를 창작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그것은 가장 현저하게 유익하고 또 우주적으로 향상시키는 어법으로 표현된 예수의 비길 데 없는 가르침을, 다시 기록하도록 내게 자격을 갖추어 주었다.

유란시아에 있는 연합 중도자 형제단을 대신하여, 나는 이 세상에서의 예수의 일생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서술한 내용이 한층 더 정교해진, 이어지는 다음 장들에 활용되어왔던 기록과 개념에서의 모든 근원에, 우리가 빚지고 있음을 가장 감사하면서 깊이 인정한다.]

제 122 편 예수의 탄생과 유아 시절

122:0.1 (1344.1) 팔레스타인이 미가엘의 증여 대상지로 선택된 이유와, 유란시아에서의 하느님의 아들의 즉각적인 출현을 위한 직접적인 배경으로서 왜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선택되지 않을 수 없었는지에 대한 많은 이유들을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122:0.2 (1344.2) 미가엘은 격리된 세계들의 지위에 대하여 멜기세덱들이 작성한 특별 보고서를 검토한 후, 가브리엘과의 상의를 통하여, 자신의 최종적인 증여를 수행할 곳으로 유란시아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후, 가브리엘이 유란시아를 직접 방문하여 인간 집단들에 대해 연구하였고 그 세계의 영적, 지적(知的), 인종적, 그리고 지리적 양상들 그리고 그것의 민족들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그는 그 결과에 따라 대상 인종을 선정함에 있어서 히브리인들이 상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결정이 미가엘의 인준을 받음에 따라, 가브리엘은 12인 가족 위원회—보다 높은 우주 개인성들의 계층들 중에서 선택된 자—를 임명하여 유대인 가정의 생활에 대한 조사임무를 위임하여 유란시아로 파견하였다. 이 위원회의 임무가 완수되었을 때, 유란시아에 나타난 가브리엘은, 그 위원회의 의견으로 미가엘의 구체적으로 투사된 육신화를 위한 증여 가정으로 똑같이 좋은 점이 있다는, 세 쌍의 가망성이 있는 연합들을 지명하는 보고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122:0.3 (1344.3)} 추천된 그 세 쌍 중에서, 가브리엘이 직접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선택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친히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그 때 그는 증여될 그 아이의 현세 어머니가 되도록 그녀가 선택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그녀에게 전해 주었다.

제 1 장. 요셉과 마리아

122:1.1 (1344.4) 예수(요셉의 아들 여호수아)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계(母系) 선조들에 의해 때때로 비(非)유대적 인종 혈통이 그의 족보에 많이 첨가되었다. 예수의 아버지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올라가고, 이러한 유서 깊은 족장 시대를 지나 더 초기의 혈통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수메르인과 낫-사람족을 거쳐, 고대의 청색인으로 이루어진 남부 지방의 종족과, 그 위로 안돈과 폰타까지 이어진다. 다윗과 솔로몬은 요셉의 직계조상이 아니었으며, 그의 조상은 아담과도 직계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요셉의 직접적인 선조들은 기능공들—건축가, 목수, 석공, 대장장이—이었다. 요셉 자신은 목수였으며 후에는 하도급 업자로 일하였다. 그의 가족은 품위 있는 평민으로 오래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명한 족보에 속해있었는데, 유란시아에서의 종교적 진보와 관련하여 특출하였던 비범한 개별존재들이 때때로 배출되어 줄곧 남의 눈을 끌어 왔다.

122:1.2 (1345.1) 예수의 육신적인 어머니인 마리아는, 유란시아의 인종적 역사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많은 여성들을 포함하여, 뛰어난 조상들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집안의 후손이었다. 비록 마리아가 살았던 시대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 중에서 매우 정상적인 성품을 소유한 평범한 여자였지만, 그녀의 선조들 중에는 아논, 다말, 롯, 밧세바, 앤시, 클로아, 이브, 엔타와 라타와 같은 저명한 여인들이 있었다. 그 시대의 어떤 유대 여인도 더 유명한 평민 혈통을 갖거나 더 좋은 시조로 거슬러 올라갈 만한 가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조상도, 강하지만 평범한 개별존재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문명의 행진과 그리고 종교의 발전적 진화 속에서 다수의 걸출한 개인성들에 의해 때때로 돋보였다. 인종적 면에서 마리아를 유대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녀는 문화와 신앙적 면에서는 유대인이었지만, 유전적 자질에서는 시리아, 히타이트, 페니키아, 그리스, 그리고 이집트 족들에 보다 가까웠으며, 그녀의 인종적 유전성은 요셉의 그것에 비해 더욱 일반적인 것이었다.

122:1.3 (1345.2) 미가엘의 구체적으로 투사된 증여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모든 부부들 중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광범위한 인종적 결합과 평균 이상의 우월한 개인적 자질을 가장 이상적 병합을 소유하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납득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미가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가브리엘은 바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증여의 부모가 되도록 선택하였던 것이다.

제 2 장. 엘리자벳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122:2.1 (1345.3) 유란시아에서의 예수의 필생의 과업은 세례자 요한에 의해 실제로 시작되었다.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리아는 유대인 제사장 지파에 속해 있었고, 그의 어머니인 엘리자벳은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속해 있는, 대가족으로 번영한 지파의 일원이었다. 사가리아와 엘리자벳은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자식이 없었다.

122:2.2 (1345.4) 어느 날 한낮에 가브리엘이 엘리자벳에게 나타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지 약 3개월 후인 기원전 8년 6월말이었는데, 나중에 자신의 현존을 마리아에게 알려준 것과 똑같았다.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122:2.3 (1345.5) "네 남편 사가리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앞에서 있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해방자의 도래를 염원하고 있는 이때에, 나 가브리엘은 곧 신성한 교사의 선구자가 될 아들을 네가 곧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과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할 것임을 알려 주려고 왔다. 그 아이가 자라게 되면 너희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전념하게 될 것이며, 장성한 후에는 네 가슴을 기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혼들을 주(主)께로 인도할 것이며 또한 네 민족의 혼을 치료해 주고 모든 인류의 영(靈)을 해방시켜 줄 그의 도래를 선포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친족인 마리아가, 약속된 이 아이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나는 그녀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122:2.4 (1345.6) 이 환상은 엘리자벳을 매우 놀라게 하였다. 가브리엘이 떠난 후, 그녀는 이 체험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고, 장엄한 모습의 그 방문자가 말한 것들을 오랫동안 숙고하면서, 다음 해 2월초에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남편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122:2.5 (1345.7) 아무튼, 엘리자벳은 남편에게조차도 다섯 달 동안이나 비밀로 간직하였다. 가브리엘의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사가리아는 매우 회의적으로 수 주 동안이나 모든 체험들을 의심했으며, 그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어서야 비로소

아내에 대한 가브리엘의 방문을 반신반의하는 정도가 되었다. 사가리아는 엘리자벳의 임신에 관하여 매우 당황하였으나, 자신의 나이가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고결한-순수성을 의심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사가리아는 요한이 태어나기 약 6주전이 되었을 때에야, 인상적인 꿈을 꾸게 된 결과로, 엘리자벳이 운명적인 한 아들, 메시아가 도래할 길을 준비하는 자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신하게 되었다.

122:2.6 (1346.1) 가브리엘은 기원전 8년 11월 중순경에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는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녀에게 나타났다. 그 일이 있은 다음, 마리아는 자신이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후,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4마일 떨어진 유다의 성 언덕에 위치한 엘리자벳의 집을 방문할 수 있도록 요셉을 설득하였다. 가브리엘은 어머니가 될 두 여인들에게, 자신이 상대방에게도 출현할 것임을 알렸었다. 자연히, 그들은 서로 만나 각자의 체험들을 비교하고 자기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였다. 마리아는 자신의 먼 친족이 되는 그 집에 3주 동안 머물렀다. 가브리엘을 만났던 환상에 대한 마리아의 신앙에 엘리자벳이 더욱

힘을 불어넣었고, 그래서 그녀는 운명의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부름에 더욱 충만하게 전념하려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고, 그녀는 어떤 도움도 없는 아이, 영역의 평균적이고 보통인 갓난아이로서, 운명의 아이를 세상에 내놓았다

122:2.7 (1346.2) 요한은 기원전 7년 3월 25일에 유다의 도시에서 출생하였다. 사가리아와 엘리자벳은 가브리엘이 약속한대로 아들이 생긴 것이 실현된 기쁨을 크게 향유하였으며,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그들은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었고, 그들은 전에 지도 받았던 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인 세례명으로 주었다. 사가리아의 조카가 이미 나사렛으로 길을 떠났는데, 엘리자벳이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라는 그녀의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122:2.8 (1346.3) 요한은 자신이 자라게 되면 영적 영도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는 관념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조심스럽게 전수 받았다. 그리고 요한의 가슴 발은 그러한 씨앗이 언제 뿌려지더라도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아주 어렸을 때에도 그는 자기 아버지가 봉사하는 기간 동안 성전에서 자주 눈에 띄었고,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의의(意義)에 대해 크게 감동되곤 하였다.

제 3 장.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알림

^{122:3,1 (1346,4)} 해가 질 무렵이 된 어느 날, 요셉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가브리엘은 돌로 만든 낮은 식탁 옆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났으며, 그녀가 침착성을 되찾기를 기다린 후 말하기를, "나는 나의 주(主)시며 너도 앞으로 사랑하고 양육하게 될 그의 명령에 따라서 여기에 왔다. 마리아야,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너의 임신은 하늘이 정한 것이고, 때가 되면 네가 한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불러야 하고, 그는 이 땅에서 또한 사람들 중에서 하늘의 왕국의 막을 열 것이다. 내가 이미 방문했던 네 친족 엘리자벳과 요셉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마라. 그녀 또한 요한이라 불릴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는 네 아들이 막강한 힘과 깊은 신념으로 사람들에게 해방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길을 예비할 것이다. 마리아야, 나의 말을 의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집이 운명의 아이가 이 세상에서 거주할 곳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나의 축복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지고자들의 힘이 너를 강하게 해 줄 것이며, 또한 온 세상의 주님께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122:3,2 (1346,5)} 마리아는 자신이 확실히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가브리엘의 방문에 대하여 여러 주 동안 가슴속으로만 은밀하게 숙고하였으며, 이 이상한 일들을 남편에게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요셉이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을 때, 마리아에 대한 자신의 깊은 신뢰감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동요되어 여러 날 동안 잠을 설쳤다. 요셉은 처음에는 가브리엘의 방문을 의심하였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실제로 신성한 메신저로부터 음성을 들었고 그의 모습을 보았었다는 사실이 거의 믿어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괴로워하였다. 인간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신성한 운명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요셉은 혼돈되는 이 관념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여러 주 동안의 고심 끝에, 그와 마리아 모두는 기대하던 해방자는 신성한 본성을 지닌 분이어야 한다는 유대인의 개념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메시아의 부모로 선택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중대한 결론에 이르자, 마리아는 엘리자벳을 방문하기 위해 서둘러 떠났던 것이다.

122:3.3 (1347.1) 마리아는 돌아오는 길에 자기 부모인 요아킴과 한나를 방문하였다. 그녀의 부모를 위시하여 두 오빠들과 두 언니들은, 이 때 가브리엘의 방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는 하였지만, 예수의 이 신성한 임무에 대해 늘 심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장차 위대한 선생이 되도록 운명 지어졌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자기 언니 살로메에게 털어놓았다.

122:3.4 (1347.2) 가브리엘은 예수가 잉태된 다음 날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했었고, 그의 방문은 그녀가 약속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전체 체험 중에서 발생한 단 한 번의 초자연적인 사건이었다.

제 4 장. 요셉의 꿈

122:4.1 (1347.3) 요셉은 자기가 매우 인상적인 꿈을 꾸기 전까지는 마리아가 특별한 아이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관념을 감내할 수 없었다. 그 꿈속에서 밝게 빛나는 천상의 메신저가 그에게 나타나 말한 것들 중에서 주요 내용은 이렇다: “요셉아, 나는 저 높은 곳을 지배하고 계시는 그의

명령에 따라서 왔는데, 장차 세상의 위대한 빛이 되실 아들을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것에 대해 너에게 설명해 주라는 지도를 받았다. 그의 안에 생명이 있을 것이며 그의 일생은 인류의 빛이 될 것이다. 그는 우선 자기 동족에게 나타내시게 되며, 그들은 그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계시할 것이다.” 이 체험이 있는 후에는, 요셉은 가브리엘의 방문에 대한 마리아의 이야기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세상의 신성한 메신저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다시는 의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122:4,2 (1347,4) 이러한 방문들이 이루어지는 동안, 다윗의 가문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었다. 예수가 “유대인들의 해방자”가 되리라는 암시는 전혀 없었으며, 대망하던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암시도 전혀 없었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의 해방자였던 것이다. 그의 임무는 어떤 한 집단이 아닌 모든 인종들과 민족들을 위한 것이었다.

122:4.3 (1347.5)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니었다. 요셉보다는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에 더 가까웠다. 요셉이 로마 정부의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 다윗의 도시인 베들레헴에 갔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요셉의 6대조 부계(父系) 조상이 고아가 되어, 다윗의 직계 자손인 사독에게 입양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요셉도 “다윗의 가문”으로 간주되었다.

122:4.4 (1347.6) 구약성경에서 소위 메시아 예언서들이라고 불리는 것들 중 대부분을 예수에게 적용시킨 것은 예수가 이 지상을 떠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루어졌다. 수세기 동안 히브리 예언자들은 해방자의 도래(到來)를 선포해 왔으며,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약속들은, 다윗왕의 권좌를 계승할 새로운 유대인 통치자가 도래할 것이며, 모세와 같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이 통치하는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모든 다른 나라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고 해석되어 왔었다. 그 외에도, 히브리 경전 속에 있는 많은 상징적인 구절들이 후대에 이르러서 예수의 일생 사명에 잘못 적용되어졌다. 구약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이 너무 심하게 왜곡되어서 마치 주(主)의 땅에서의 일생에서의

어떤 에피소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예수가 자신과 다윗 왕가의 관계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공개적으로 부인한 적도 한 번 있었다. 심지어는 “한 여자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는 문장마저도 “한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로 해석되었다. 이것 역시 미가엘의 이 세상 생애 이후에 작성된 요셉과 마리아의 족보에서의 많은 것 중에서 진실이다. 이러한 족보 속에는 주(主)의 조상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들은 정확한 것이 아니며 사실적인 것에 근거를 두지 않은 듯이 보인다. 초기에 예수를 추종하였던 모든 사람들은 고대의 예언적 기사들 모두가 자기들의 주님이며 주(主)이신 그의 일생 속에서 성취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유혹에 너무 자주 빠졌다.

제 5 장. 예수의 땅에서의 부모

122:5.1 (1348.1) 요셉은 온화한 성품과 매우 양심적인 사람이었으며, 자기 민족의 모든 종교적 관례와 실천 관행에 항상 신실하였다. 그는 말이 거의 없었지만 생각이 깊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비참한 처지는 요셉을 매우 슬프게 하였다. 젊은 시절의 요셉은 여덟 명의 형제자매들 중에서 매우 쾌활한 편이었으나, 결혼 초기에 (예수의 어린

시절) 그는 정신적으로 약간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기질적인 현시활동은 그가 뜻밖의 죽음을 당하기 바로 전에, 그리고 그가 단순한 목수의 직업에서 번영한 공사 계약자가 됨으로써 가족들의 경제적인 형편이 풀린 후에는 매우 호전되어 있었다.

122:5.2 (1348.2) 마리아의 기질은 그녀의 남편과는 상당히 상반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늘 명랑하였고, 기가 꺾이는 적이 거의 없었으며, 항상-밝은 기질을 갖고 있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감정적인 느낌들을 자유롭게 수시로 표현하곤 하였으며, 요셉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전까지는 슬픔에 잠긴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었다. 그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자기 눈앞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첫 아들의 범상치 않은 생애에 대해 염려와 의문을 품게 되었을 때에도, 그녀는 아직 이 충격에서 거의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평범하지 않은 이 모든 체험들을 겪으면서 마리아는 이상하고 납득하기 힘든 만아들과 그의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침착하고 용기 있게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였다.

122:5.3 (1348.3)

예수는 인간본성에 대한 굉장히 동정심이 많은
납득과 남다른 부드러움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으며,
어머니로부터는 위대한 선생으로서의 재능과 정의로운
분개에 대한 엄청난 수용능력을 물려받았다.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 때 예수의 감정적 태도 속에는,
아버지처럼 생각이 많고 신앙적이며 가끔씩은 슬픈 듯이
보이는 성격이었지만; 마리아의 낙천적이고도 확고한
기질을 드러내는 경우가 더 많았다. 대체적으로, 신성한
아들이 성장하는 과정과 어른으로서의 중대한 과정을
걸어가는 그의 생애에 마리아의 기질이 더 지배적이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예수가 부모 두 사람의 특색의
혼합된 면을 보였고; 또 다른 면에서는 두 사람의 상반되는
특색들을 보이기도 하였다.

122:5.4 (1348.4)

예수는 유대 의식(儀式)들의 용법에 대한 엄한
훈련과 히브리 경전에 대한 보기 드문 식견을
요셉으로부터 물려받았다; 마리아로부터는 종교생활에
대한 보다 폭넓은 관점과 개인적인 영적 자유에 대한 좀 더
개방적인 개념을 얻었다.

122:5.5 (1349.1) 요셉과 마리아의 두 집안은 그 당시로서는 교육을 잘 받은 편에 속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평균보다 훨씬 높은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요셉은 깊은 사색가였던 반면; 마리아는 계획가, 적응력이 뛰어났고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실천적인 사람이었다. 요셉은 검은 눈과 검은머리를 가졌으며, 마리아는 갈색 눈과 금발에 가까운 머리를 갖고 있었다.

122:5.6 (1349.2) 요셉이 살아 있었더라면, 그는 의심할 여지없이 자기 만아들의 신성한 사명을 확고하게 믿었을 것이다. 마리아는 그녀의 다른 자식들과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이 취하는 태도에 영향을 받으면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그녀의 최종적인 태도는 그 아이가 잉태된 직후에 나타났던 가브리엘에 대한 기억에 의해서 항상 유지되었다.

122:5.7 (1349.3) 마리아는 옷감 짜는 숙련자이었는데 그 당시 대부분의 가내수공업 기술 중에서 평균 수준을 훨씬 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훌륭한 가사 관리자였고 그리고 우월한 가정주부였다. 요셉과 마리아는 둘 모두 훌륭한 선생

역할을 하였으며, 자식들이 그 당시의 지식에 해박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122:5.8 (1349.4) 요셉은 젊었을 때 마리아의 부친의 집 증축공사에 고용되었었는데, 점심 식사시간에 마리아가 요셉에게 마실 물을 가져다 준 것이 인연이 되어, 예수의 부모가 되도록 운명되어진 부부로서의 구애가 실제로 시작되었다.

122:5.9 (1349.5) 요셉이 21살 되던 해에, 그와 마리아는 나사렛 근처에 있는 마리아의 집에서 유대전통에 따라 결혼식을 올렸다. 이 결혼은 거의 2년 동안에 걸친 정상적인 정혼 기간 후에 치러졌다. 그 직후에 그들은 나사렛에 있는 새 집으로 이사하였으며, 그 집은 요셉이 두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지은 것이었다. 그 집은 사방에 펼쳐진 시골 풍경이 매우 아름답게 내려다보이는, 가까이에 있는 구릉지 밑에 위치하고 있었다. 곧 부모가 될 이 두 젊은 부부는, 자신들이 집을 떠나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 있는 동안에 한 우주의 중대한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한 채, 이 집에서 약속의 아이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

122:5.10 (1349.6) 요셉 쪽의 가족 대부분은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신자들이 되었지만, 마리아 쪽의 사람들은 예수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를 믿는 자가 거의 없었다. 요셉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에 대하여 영적 개념에 더 치우쳐 있었지만, 마리아와 그녀의 가족들,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메시아에 대해서 단지 현세적인 해방자나 정치적 통치자로서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마리아의 선조들은 그 당시 최근이었던 마카비 추종자들의 운동에 두드러지게 정체성이 확인되어 있었었다.

122:5.11 (1349.7) 요셉은 유대교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동방 혹은 바빌로니아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으며, 마리아는 율법과 예언서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보다 자유분방하고 폭넓은 서방 혹은 그리스적인 견해에 강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제 6 장. 나사렛의 집

122:6.1 (1349.8) 예수의 집은 나사렛의 북쪽 지역에 있는 높은 언덕에서 그리 멀지 않고, 성읍의 동쪽 지역에 있는 마을 우물에서 조금 떨어진 있었다. 예수의 가족은 도시 외곽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그가 나중에 수시로 시골길 산책을 즐기거나 근처에 있는 고원지대, 동쪽으로

뻗어 있는 다불산 그리고 비슷한 높이의 나인 언덕을 제외하고는 남부 갈릴리의 모든 언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오르는 것을 훨씬 쉽게 하였다. 그들의 집은 이 언덕의 남쪽 구릉으로부터 약간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 언덕의 기슭과 나사렛으로부터 가나 쪽으로 가는 길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었다. 언덕을 오르는 것 외에도, 예수는 세포리로 가는 길과 만나게 되는 지점을 향하여 북동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언덕 기슭을 따라 굽이굽이 난 좁은 길을 따라 산책하기를 즐겼다.

122:6.2 (1350.1) 요셉과 마리아의 집은 지붕이 평평하고 방이 하나가 있는 석조 건물이었으며 가축들을 기르는 부속 건물 하나가 붙어 있었다. 가구들로는 낮은 식탁, 질그릇과 돌로 된 접시와 냄비들, 베틀, 등잔, 몇 개의 작은 의자들, 그리고 돌바닥에 깔고 자는 돛자리들이 있었다. 축사가 가까이 있는 뒷마당에는 곡식을 가는데 필요한 맷돌과 화덕을 보관해 두는 창고가 있었다. 그 맷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돌리고 다른 한 사람은 곡식을 집어넣기 위해 두 사람을 필요로 하였다. 예수는 어린 시절에 자기 어머니가 맷돌을 돌리는 동안 곡식을 집어넣는 일을 자주 도왔다.

122:6.3 (1350.2) 해가 바뀌면서 가족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온 식구들은 더 넓게 만든 돌 식탁 주위에 함께 좁혀 앉아 공동으로 사용하는 음식이 담긴 접시나 혹은 냄비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각자의 음식을 나누며 즐기곤 하였다. 겨울 동안의 저녁식사 때에는 올리브기름으로 채워진 작고 납작한 진흙 등잔으로 식탁을 밝혔다. 마르다가 태어난 후, 요셉은 집에 큰 방을 하나 덧붙여지었으며, 낮에는 목공소로 쓰고 밤에는 침실로 사용하였다.

제 7 장. 베들레헴으로의 여행

122:7.1 (1350.3) 기원전 8년 3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그 달)에 시저 아우구수투스는 로마제국의 모든 거주자들이 인구조사를 받도록 명령하였는데, 이는 세금징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 민족이 계수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으며, 그리고 이것은, 유대의 왕 헤롯의 국내의 심각한 어려운 여건들과 관련하여, 유대인의 나라에 대한 인구조사를 1년간 연기하도록 만들었다. 기원전 8년에 이 인구조사가 로마제국 전역에서 실시되었지만, 유독

헤롯이 지배하는 팔레스타인 왕국만은 예외였는데, 그보다 일 년 후인 기원전 7년에 실시되었다.

^{122:7.2 (1350.4)} 등록을 위하여 마리아 역시 베들레헴으로 반드시 여행할 필요는 없었지만—요셉에게는 가족 전체를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 모험을 좋아하고 적극적인 성격인 마리아는 그와 동행하겠다고 고집하였다. 그녀는 요셉이 집을 비운 동안에 혼자 아이를 낳게 될까봐 걱정스러웠고 게다가 베들레헴이 유다의 도시와 그리 멀지 않았으므로 그녀의 친족인 엘리자벳을 다시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였기 때문이었다.

^{122:7.3 (1350.5)} 요셉이 실질적으로 마리아의 동행을 막으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3일 내지 4일의 여행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두 사람의 몫을 만들어서 자기도 여행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출발하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의 동행을 수락하였으며, 그들은 새벽녘에 기쁜 마음으로 나사렛을 떠났다.

^{122:7.4 (1350.6)}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하였고, 타고 갈 수 있는 가축이 한 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임신하여 몸이 무거운 마리아가 물건들과 함께 짐승 위에 타고, 요셉은 걸으면서

그 짐승을 끌고 갔다. 요셉은 최근에 자기 아버지가 몸을 못 쓰게 되어 부모들도 부양해야 되었기 때문에 자기 집과 살림 가구 등을 유지하기가 크게 부담스러워졌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유대인 부부는 기원전 7년 8월 18일 이른 아침에 초라한 자기 집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났던 것이다.

122:7.5 (1351.1) 여행 첫 날, 그들은 길보아산 기슭에 있는 작은 언덕에 도착하였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요단강 가에 야영지를 정하고 밤을 보내면서 과연 아이가 태어날까에 대해 여러 가지의 추측을 하였는데, 요셉은 영적 선생으로서의 개념을 버리지 않았고 마리아는 히브리 국가의 해방자인 유대의 메시아에 대한 관념을 고집하였다.

122:7.6 (1351.2) 8월 19일의 밝은 이른 아침에,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길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요단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사르타바산 기슭에서 점심을 먹었고, 여행을 계속하여 그날 밤에 예리고에 도착하여 그 도시 변두리 도로변에 위치한 여인숙에 묵었다. 저녁식사 후에는 로마의 통치에 의한 압제, 헤롯, 인구조사 등록, 그리고 유대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의 상대적 영향력 등에 대한 많은 토론을 한 후, 나사렛에서 온 이 여행자들은 잠자리에 들었다. 8월 20일 아침 일찍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 정오가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을 방문하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목적지인 베들레헴에는 오후에 도착하였다.

122:7.7 (1351.3) 여인숙은 손님들로 가득 찼으므로 요셉은 먼 친척들과 함께 기거할 수 있는 집을 찾았으나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방들은 이미 만원이었다. 그 여인숙 안마당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여인숙 바로 아래쪽에 바위를 깎아내고 카라반들을 위해 지어놓은 마구간들을, 숙박 객을 위하여 짐승들을 치우고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셉은 당나귀를 여인숙 안마당에 매어 놓은 후에, 옷 보따리와 식량을 어깨에 메고 아래쪽에 있는 숙소를 향하여 마리아와 함께 돌계단을 내려갔다. 그들의 숙소는 전에 곡식창고로 사용되었던 곳이었으며, 맞은편에는 마구간과 구유가 놓여 있었다. 천막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들은 이런 안락한 장소나마 얻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122:7.8 (1351.4) 요셉은 바로 나가서 등록하려고 생각했었지만, 마리아는 매우 지쳐있었다; 상당히 고통스러워진 그녀는 자기 곁에 있어주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는 아내의 말대로 하였다.

제 8 장. 예수의 탄생

122:8.1 (1351.5) 밤새도록 마리아는 몸이 불편해서 그녀와 요셉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하였다. 해가 뜰 무렵 산통이 심해졌고, 기원전 7년 8월 21일 정오에, 다른 동료 여자 여행객들의 친절한 도움을 받아서, 마리아는 한 아들을 낳았다. 나사렛 예수가 세상에 태어났으며, 그는 마리아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가져온 옷에 싸여, 가까이에 있는 구유에 눕혀졌다.

122:8.2 (1351.6) 그 전이나 그 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약속된 아기가 태어났으며; 팔 일째 되는 날에 유대의 실천 관행에 따라 할례를 받았고, 공식적으로 여호수아(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122:8.3 (1351.7) 예수가 태어나신 다음 날, 요셉은 인구조사에 등록했다. 그는 이틀 전에 여리고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여인숙에 머물고 있는 부유한 자기 친구에게 요셉을 데리고 갔으며,

그 친구는 나사렛에서 온 그 부부와 기꺼이 숙소를 바꾸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날 오후에 그들은 여인숙으로 방을 옮겼고, 요셉의 먼 친족 되는 집에 숙소를 얻기 전까지, 거의 3주간을 그곳에서 지냈다.

122:8,4 (1351.8) 예수가 태어나신 지 이틀 후, 마리아는 엘리자벳에게 자기 아이가 태어났다는 전갈을 보냈으며, 요셉에게 예루살렘에 와서 사가리아와 함께 그들이 당면한 모든 관련사들에 대해 상의하자는 초청을 회답으로 받았다. 그 다음 주에 요셉은 사가리아와 상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다. 사가리아와 엘리자벳은 예수가 진실로 유대인의 해방자, 메시아이시며, 자신들의 아들 요한은 조력자들의 우두머리로서 그의 오른팔 역할을 하도록 운명되었다는 것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다. 마리아도 똑같은 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자라서 다윗의 뒤를 이어 온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수 있도록 다윗의 도시인 베들레헴에 자기들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별로 어렵지 않게 요셉을 설득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베들레헴에 일 년 이상을 머물러 있었으며, 요셉은 그 동안 목수 일로 생계를 꾸려 나갔다.

122:8.5 (1352.1)

예수가 탄생한 날 정오에, 유란시아의 세라핌천사들이 지도자들 밑에 함께 모여 베들레헴의 구유 위에서 영광의 찬미를 불렀지만, 이 찬미의 소리들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것이었다. 사가리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낸, 우르에서 온 어떤 사제(司祭)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목동들은 물론 다른 어떤 필사 창조체들도 베들레헴의 아기에게 경의를 표하러 오지 않았다.

122:8.6 (1352.2)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온 이 사제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생명의 빛”이 아기의 모습으로 곧 나타날 것이라는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자기 나라에 있는 기이한 종교 선생으로부터 얼마 전에 들었었다. 그래서 세 명의 이 선생들은 그 “생명의 빛”을 찾아 나섰던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찾아보려던 여러 주간의 수고가 허사로 끝난 후에, 그들이 막 우르로 돌아가려 할 때, 그들은 사가리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그들이 찾는 대상이 바로 예수임에 틀림없다는 자기 생각을 털어놓았으며,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고, 그곳에서 아기를 발견한 그들은 그의 육신적인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선물을 전해 주었다. 그들이 방문하였을 때, 아기는 태어난 지 3주 정도 되었다.

122:8.7 (1352.3) 이 현자(賢者)들은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니었다. 베들레헴의 별에 대한 아름다운 전설은 다음과 같이 유래된 것이다: 예수는 기원전 7년 8월 21일 정오에 태어났다. 기원전 7년 5월 29일에 물고기 별자리 안에서 목성과 토성이 유례없이 겹쳐지는 현상이 있었다. 같은 해 9월 29일과 12월 5일에도 이와 비슷한 겹쳐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천문학적 사실이다. 이러한 특수하지만 또 전적으로 자연적인 사건들에 대해, 선의(善意)를 가진 후세대의 열광적인 신자들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베들레헴의 별을 따라 구유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그 아기를 발견하여 경배를 드렸다는 흥미로운 신화를 만들어 내었다. 동양적이거나 근동의 마음을 지닌 자들은 요정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하며, 그들은 종교 영도자들이나 정치적 영웅들의 삶에 관해 아름다운 신화들을 계속하여 지어낸다. 인쇄술이 없던 시절에는, 대부분의 인간들의 지식이 구전(口傳)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졌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신화가 전통으로 바뀌고 또 그 전통이 결국에는 사실로 와전되기가 매우 쉬웠다.

제 9 장. 성전에 아기를 내 보임

122:9.1 (1352.4)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모든 첫아들은 주님께 속해 있다고 가르쳤으며, 이방인 국가들 중에서 관습으로 행해지는 것처럼 그를 희생물로 제공하는 대신에, 권한이 부여된 사제에게 그의 부모가 다섯 세겔을 제공함으로써 그 아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기의 어머니에게는 어떤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성전에 직접 나와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적당한 희생물을 제공하게 하여) 정화를 받도록 하는 모세의 율례가 있었다. 이 두 가지의 의식이 동시에 행해지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도,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보이고 그에 대한 속전(贖錢)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리고 아이의 출산으로 인하여 추정되는 마리아의 부정(不淨)함을 정결케 하는 예식에 해당하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직접 올라갔다.

122:9.2 (1353.1) 성전 안마당에는 비범한 두 인물들, 노래를 부르는 시미온과 여자 시인 안나가 항상 서성거리고 있었다. 시미온은 유대인이었지만 안나는 갈릴리인이었다. 이 두 사람은 자주 서로에게 동무가 되었고, 둘 모두 제사장 사가리아와 절친한 사이였으며, 그가 요한과 예수에 대한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었다. 시미온과

안나 두 사람 모두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해 왔고 또 사가리아를 신뢰하였으므로, 예수가 바로 유대 민족이 기대해 온 해방자임을 믿게 되었다.

122:9.3 (1353.2) 사가리아는 요한과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오기로 한 날을 알고 있었고, 그가 손을 들어 인사함으로써, 여러 명의 첫-아들들 중에서 어떤 아이가 예수인지를 가리켜 주기로 시미온과 안나와 사전에 협의하였다.

122:9.4 (1353.3) 이 경우에 대비하여 안나가 지은 시를 시미온이 노래로 불렀는데, 요셉과 마리아를 위시하여 성전 마당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하였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첫-아들의 구원에 대한 찬미를 불렀다:

122:9.5 (1353.4)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122:9.6 (1352.5) 그가 우리에게 오셨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도다;

122:9.7 (1353.6) 우리 모두를 위하여 구원의 땀을

122:9.8 (1353.7) 그의 하인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122:9.9 (1353.8)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한 바와 같이

122:9.10 (1353.9)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함이라

122:9.11 (1353.10)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였으니

122:9.12 (1353.11)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맹세라

122:9.13 (1353.12)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122:9.14 (1353.13)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정의로

122:9.15 (1353.14)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122:9.16 (1353.15) 이 약속의 아이여 네가 지고자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122:9.17 (1353.16) 주님 앞에 가서 그의 왕국을 건설하여

122:9.18 (1353.17) 그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122:9.19 (1353.18) 새벽 여명이 높은 곳으로부터 이제 우리를
찾아왔으니,

122:9.20 (1353.19) 우리 하느님의 자비를 기쁨으로 향유하라.

122:9.21 (1353.20) 이로써 어둠 안에서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안에
앉아 있는 우리를 비추시고

122:9.22 (1353.21)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 하시리로다.

122:9.23 (1353.22) 주님, 이제는 말씀한 대로 당신의 하인을 평안히
놓아 주소서

122:9.24 (1353.23)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122:9.25 (1353.24)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122:9.26 (1353.25)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122:9.27 (1353.26)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122:9.28 (1353.27)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혼동되고 위압되어—아무 말이 없었다.
마리아는 늙은 여자 시인인 안나의 작별 인사 때문에 매우
불안하였고, 요셉은 예수를 유대 민족이 고대하던

메시아인 것처럼 만들려는 그들의 때 이른 노력이 달갑지 않았다.

제 10 장. 헤롯의 행동

122:10.1 (1353:28) 그러나 헤롯의 감시자들도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았다. 우르에서 사제들이 베들레헴을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자, 헤롯은 그 갈대아인들을 자기 앞에 출두시켰다. 그는 이 현자들에게 새로운 “유대인의 왕”에 대해 자세히 캐물었지만, 그들은 인구조사에 응하러 남편을 따라 온 한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출산했다는 대답밖에 해 주지 않았다. 이 대답에 만족할 수 없었던 헤롯은, 그의 왕국은 세속적이 아닌 영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그들이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주어 보내면서, 헤롯 자신도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그 아기를 찾아 보고하라고 지도했다. 그러나 이 현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자, 헤롯의 의심은 더 심해졌다. 그가 이 일들에 대해 마음속으로 숙고하고 있을 때, 그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성전에서 최근의 발생사건들에 대해 보고했으며, 예수의 속전(贖錢) 예식에서 시미온이 노래한 가사들 일부의 사본도 가져왔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추적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헤롯은 그 부부가

아기를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를 알아 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에게 크게 화를 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요셉과 마리아를 찾도록 사람들을 보냈다. 헤롯이 나사렛에서 온 그 가족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가리아와 엘리자벳은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아기는 요셉의 친척들 집으로 숨겨졌다.

122:10.2 (1354.1) 요셉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두려웠으며, 따라서 그들의 얼마 안 되는 저축은 금방 바닥이 났다. 요셉은 성전에서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해, 모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정해 준 정결 제물 예법대로, 어린 비둘기 두 마리만 바쳤을 정도로 가난해 있었다.

122:10.3 (1354.2) 1년이 넘는 후까지도 그의 정탐꾼들이 예수를 찾지 못하자, 아직도 아기가 베들레헴에 숨어있다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헤롯은 베들레헴의 모든 가정에 조직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두 살 아래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리고자 하였다. 헤롯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될 아기를 없애고 싶었다. 그리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는 하루 동안에 열여섯 명의 남자 아기들이 살해되었다. 그러나

이런 음모와 살인은 헤롯의 궁내에서는 보통으로 일어나는 발생사건들이었으며, 심지어는 그의 직계 가족들에게도 해당되었다.

122:10.4 (1354.3) 이 아기들의 집단적 살해는 예수가 겨우 한 살을 조금 넘었던 기원전 6년 10월 중순에 일어났다. 그러나 헤롯의 측근자들 중에도 도래할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의 하나가 베들레헴에서의 아기 살해 계획을 사가리아에게 알려 주었으며, 그는 바로 요셉에게 메신저를 보냈고; 살해 사건이 있던 전날 밤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로 떠났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아무도 동행시키지 않고 예수만을 데리고 이집트로 여행하였다. 사가리아가 마련해 준 돈으로 그들은 알렉산드리아로 갔으며, 마리아와 예수가 요셉의 한 부유한 친척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요셉은 직접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들은 꼬박 2년 동안 알렉산드리아에서 머물렀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베들레헴에 돌아가지 않았다.

제 123 편 예수의 유년기 초기

123:0.1 (1355.1)

베들레헴에 체류하는 동안의 불확실성과 불안감 때문에, 마리아는 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안전하게 도착한 후 정착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까지 아기에게서 젖을 떼지 않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친족들과 함께 살았으며, 요셉은 도착하여 얼마 되지 않아 안정된 일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잘 부양할 수 있었다. 요셉은 몇 달 동안 목수로 고용되어 일하다가 당시 공공 건물 건축 현장에서 일하던 많은 인부들의 십장(什長)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체험은 후에 요셉이 나사렛으로 돌아온 후 주계약자이자 건축자가 되는 관념을 가지게 하였다.

123:0.2 (1355.2)

예수의 무력한 유년기의 초기 몇 년 동안 내내, 마리아는 앞으로 땅에서 이루어야 할 그의 사명을 방해하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위험한 일이 아기에게 생기지나않을까 하여 노심초사하였다; 세상의 어떤 어머니도 아이에게 그보다 더 헌신적일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가 우연히 살게 되었던 그 집에는 마침 그와 나이가 비슷한 아이가 둘이 있었으며, 동네에도 같이 놀만한 비슷한 또래들이 여섯 명 있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를 늘 자기 가까이에 있게 하였다. 그녀는 예수가 다른

아이들과 마당에서 놀도록 허락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였지만, 요셉은, 친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로 하여금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적응하여 사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납득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마리아도, 이런 식의 과잉보호가 어쩌면 아이를 자아-의식적이고 자아-중심적 성격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이 약속의 아이를 그 또래의 다른 보통 아이들처럼 자라게 허락하자는 계획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순종하였지만, 그녀는 아이들이 집 주변과 마당에서 노는 동안에 항상 지켜보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오직 애정이 깊은 어머니만이, 갓난아기 때와 어린아이 시절 동안 자기 아들의 안전 때문에 항상 가슴을 졸였던 마리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23:0.3 (1355.3) 알렉산드리아에 머물렀던 2년 동안, 예수는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자라났다. 몇몇 친구들과 친척들을 빼놓고는, 누구에게도 예수가 “약속의 아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요셉의 친척들 중에 한 사람이, 멤피스에 있는 이크나톤의 먼 후예들인 몇몇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누설했으며, 나사렛 가족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작은 집단의 신자들과 함께 요셉의 친척-후원자의 호화로운 집에 모여 나사렛 가족의 평안을 빌었고 아이에게 경배하였다. 이때 모였던 사람들이 히브리 경전의 그리스어 번역판 전(全)권을 예수에게 선물하였다. 그러나 이집트에 남아 있기를 바라는 멤피스와 알렉산드리아의 친구들의 청을 그와 마리아가 최종적으로 거부하기 전까지는, 이 유대인의 신성한 문서들의 이 사본은 요셉의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신자들은 이 운명의 아이가 팔레스타인의 어떤 이름난 장소에 있는 것보다도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것이 이 세계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설득 때문에,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받아들인 후에도 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얼마 동안 떠나지 못하였다.

123:0.4 (1356.1) 요셉과 마리아는 드디어 친구 에즈레온 소유의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요파로 향하였으며, 기원전 4년 8월 하순에 그 항구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곧장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곳에서 9월 한 달을 보내면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나사렛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 자기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의 상의를 하였다.

123:0.5 (1356.2) 마리아는 예수가 다윗의 도시인 베들레헴에서 성장하여야만 한다는 관념을 전부다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들의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해방자가 될 것이라고는 실제로 믿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실제적인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기가 다윗의 족보에 포함된 것은 조상 중 한사람이 다윗 후손의 가문에 입양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다윗 왕위를 이을 새 계승자가 양육되기에는 다윗의 도시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마리아는 생각했지만, 요셉은 헤롯 안티파스의 형제인 아켈라우스보다는 헤롯 안티파스에 운을 맡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베들레헴이나 유대 지방 어느 다른 도시에서도 아이의 안전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갈릴리를 다스리는 안티파스보다는 아켈라우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위협적인 통치 방법을 더 추구할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이러한 모든 이유들 외에도, 요셉은 아이를 기르고 교육하는 곳으로는 갈릴리가 더욱 좋은 장소라고

주장하였지만, 반대하는 마리아를 설득하기까지는 3주가 걸렸다.

123:0.6 (1356.3) 10월 1일 요셉은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마리아와 그의 친구들을 확신시켰다. 따라서 기원전 4년 10월 초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나 리다와 스키토폴리스를 거쳐 나사렛을 향해 떠났다. 그들은 어느 일요일 아침 일찍 떠났으며, 마리아와 아이는 짐을 나르는 새로 구입한 짐승을 타고, 요셉과 다섯 명의 친지들은 걸어서 갔으며; 요셉의 친척들은 그들이 나사렛으로 홀로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요르단 계곡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서쪽으로 가는 길들도 두 명만의 여행자와 어린 나이의 아이가 홀로 여행하기에는 전혀 안전한 곳이 못되었다.

제 1 장. 나사렛으로 돌아옴

123:1.1 (1356.4) 여행한지 4일째 되는 날, 일행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당도하였다. 그들은 나사렛의 집에도 알리지 않은 채 도착하였고, 그곳에는 요셉의 결혼한 형제 중 한사람이 3년 넘게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보자 매우 놀랐으며; 그들이 일을 매우 은밀히 추진했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은 물론 마리아의 가족들도 그들이 알렉산드리아를 떠난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 다음날로 요셉의 동생은 이사를 나갔고, 예수의 출생 이후 처음으로 마리아는 그녀의 단출한 가족끼리 자기 집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일주일이 채 못 되어 요셉은 목수로서의 일감을 확보하였으며, 그들은 매우 행복하였다.

123:1.2 (1356.5) 나사렛으로 돌아올 당시 예수는 3년 2개월쯤 되었다. 그는 이 모든 여행 동안 매우 잘 견디었으며, 건강 상태도 매우 좋았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즐길 수 있는 자기 공간을 가지게 된다는 데 대한 흥분으로 아이답게 매우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알렉산드리아 놀이친구와의 관계적-연합을 매우 그리워하였다.

123:1.3 (1356.6) 나사렛으로 오는 동안 요셉은 예수가 약속의 아이라는 사실을 갈릴리의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알리는 것은 현명치 않다고 마리아를 설득하였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이 약속을 매우 잘 지켰다.

123:1.4 (1357.1) **예수가 네 살이 되던 1년 동안은 정상적인 육체적 발육과 비범한 정신적 활동이 있던 기간이었다. 그 당시에 그는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이웃 아이인 야곱과 매우 친하게 지냈다. 예수와 야곱은 항상 재미있게 놀았으며, 그들은 자라면서 훌륭한 친구이자 충실한 동행자가 되었다.**

123:1.5 (1357.2) **이 나사렛 가족의 생활 중에서 그 다음으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은, 기원전 3년 4월 2일 이른 아침에 있었던 둘째 아이 야고보의 출생이었다. 예수는 동생이 생겼다는 사실에 매우 흥분하였으며, 아기의 초기 행동들을 관찰하려고 오랫동안 아기 주위에 서 있곤 하였다.**

123:1.6 (1357.3) **같은 해 한여름에, 요셉은 마을의 공동 우물과 카라반들이 묵어가는 장소 근처에 작은 작업장을 지었다. 이 후로 그는 날이 갈수록 목수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는 두 명의 형제들과 기술자 몇 명과 연관하였고, 그들이 일하러 나가 있는 동안 자신은 작업장에 남아 멩에나 쟁기 등을 만들거나 다른 목공일을 하였다. 그는 가족을 가공하고 새끼줄과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예수는 커가면서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에는, 어머니의 가사 일을 돕는 일에 자기 시간의 반을 보냈고, 같은 양의 시간을 아버지가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세상 방방곡곡에서 오는 카라반 지휘-안내자들과 여행객들의 대화와 잡담을 들으면서 보냈다.

123:1.7 (1357.4) 예수가 네 살이 되기 한 달 전인 같은 해 7월에, 카라반 여행자들과의 접촉으로 인한 악성 장(腸) 전염병이 발발하여 나사렛 전역에 퍼졌다. 마리아는 예수가 이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성을 크게 우려하였으므로, 나사렛으로부터 남쪽으로 수마일 떨어져 있는 사리드 근방 메기도 거리에 있는 오빠의 시골집으로 두 아이들을 데리고 피신하였다. 그들은 두 달이 넘도록 나사렛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예수는 자기에게 있어서 첫 체험이 된 농장에서의 생활을 매우 즐겼다.

제 2 장. 5살 되던 해(기원전 2년)

123:2.1 (1357.5) 나사렛으로 돌아온 후 일 년 조금 넘었을 때, 소년 예수는 최초로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진심으로의 도덕적 결정을 내릴 나이에 이르렀으며;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신성한 선물인 생각 조절자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 도래하였는데, 그 조절자는 이전에 마키벤타
멜기세덱과 봉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초인간적 존재가
필사자 육신과 똑같은 모습 속에서 사는 육신화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체험을 획득한 조절자였다. 이 사건은
기원전 2년 2월 11일에 발생했다. 예수는, 이 생각
조절자들이 자기들 마음속에 거하도록 받아들이고 그
마음들이 궁극적으로 영성화 되도록 하는 일과 자신들의
진화하는 불멸의 혼이 영원토록 살아남도록 일하게 하는,
그 날 이전이나 이후의, 수도 없이 많은 다른 아이들과 꼭
마찬가지로, 이 신성한 감시자가 자신에게 온 것을
의식하지 못하였다.

123:2.2 (1357.6) 2월 이었던 이날, 미가엘이 어린아이로서 육신화
함에 있어서의 고결한-순수성과 관계된, 우주 통치자들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감시 임무가 종료되었다. 이 날
이후로, 인간으로서 육신화를 나타내는 동안 내내, 예수를
보호하는 임무는 내주 하는 조절자와 그리고 연관된
세라핌천사 수호자들의 관리 안에 있게 되었으며, 때로는
그들의 행성 상급자들의 명령에 따라서 어떤 한정적인
임무들을 수행하도록 배정된 중도 창조체들로부터 원조를
받기도 하였다.

123:2.3 (1357.7) 예수는 같은 해 8월에 다섯 살이 되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때를 그의 일생에서 5살 되던 해라고 부를 것이다. 기원전 2년인 이 해에, 예수의 다섯 번째 생일을 한 달 남짓 남겨 놓은 날인 7월 11일 밤, 예수는 그의 여동생 미리암의 탄생으로 매우 기뻐하였다. 다음날 저녁, 예수는 자기 아버지와 세상의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들이 각기 독자적인 개별존재들로 태어나는 방식들에 관하여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수의 어린 시절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의 사려 깊고 탐구적인 질문에 대한 부모들의 답변으로 이루어졌다. 요셉은 이 아이의 끝없는 질문에 대해 시간을 내서 충실히 대답해 주는 일을 소홀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다섯 살부터 열 살까지 예수의 질문은 항상 끊어지지 않았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의 질문에 언제나 대답해 줄 수는 없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그의 질문에 대해 그와 함께 토론하고, 갑작스럽게 그의 마음에 떠오른 그 문제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을 찾으려는 그의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였다.

123:2.4 (1358.1) 나사렛으로 돌아온 후부터 그들은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으며, 요셉은 새 가게를 지었고 또 일을 다시 시작하느라 평소보다 더 바쁘게 지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일에 너무 매여 있었던 나머지 야고보에게는 요람을 만들어 줄 시간이 없었지만, 미리암이 태어나기 오래 전에 요셉이 미리 요람을 만들어 놓았으므로, 편안한 침대 속에 누워 그 주위에 둘러선 가족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어린 예수는 이러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에 한껏 젖어있었다. 예수는 어린 남동생과 아기 여동생을 매우 좋아하였으며, 아이들을 돌보는 마리아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123:2.5 (1358.2) 그 당시에 이방 세계에는, 갈릴리의 이러한 유대인 가정보다 아이들을 더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종교적으로 키울 수 있는 가정이 매우 드물었다. 이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데 있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들의 삶을 다음과 같이 일곱 단계로 나누었다:

123:2.6 (1358.3) 1. 생후 8일까지의 신생아

123:2.7 (1358.4) 2. 젖먹이

123:2.8 (1358.5) 3. 젖을 떼는 아이

123:2.9 (1358.6) 4. 5살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시기

123:2.10 (1358.7) 5.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하며, 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가르칠 책임을 갖게 되는 시기

123:2.11 (1358.8) 6. 청소년기의 남, 여 아이들

123:2.12 (1358.9) 7. 남, 여 젊은이들

123:2.13 (1358.10) 아이의 다섯 번째 생일까지만 아이 기르는 책임을 어머니에게 지우는 것이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으며, 그리고 나서 남자아이인 경우 그 이후의 교육은 아버지에게 책임이 맡겨졌다. 그러므로 예수는 이 해에 갈릴리 유대인들의 아동성장 다섯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따라서 기원전 2년 8월 21일에 공식적으로 마리아는 앞으로의 교육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던 것이다.

123:2.14 (1358.11) 이제는 예수의 지적이고 종교적인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셉이 지게 되었지만, 마리아는 집안에서 그를 교육시키는 일에 여전히 관심을 가졌다. 그녀는 예수에게 집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 근처에서

자라고 있는 포도나무와 꽃들에 관한 지식과 가꾸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또한 지붕 위(여름에는 침실로 사용됨)에 모래를 넣은 낮은 상자들을 올려놓고, 예수로 하여금 지도를 그리거나 아람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나중에는 히브리어까지 쓰는 실천 연습을 일찍부터 하게 하였으며, 예수는 오래지 않아서 이 세 가지의 언어 모두를 유창하게 읽고 쓰고 그리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123:2.15 (1358.12) 예수는 육체적으로 거의 완전해 보였으며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정상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갔다. 그의 첫 번째 질병으로, 그는 다섯 번째 해(달력으로) 후반기 즈음에 약간의 소화불량을 체험하였다.

123:2.16 (1359.1)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장남의 장래에 대해 자주 의논하였는데, 만약 너희가 그때 옆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하며 아무 걱정 없는, 단지 호기심이 매우 많은 아이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목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제 3 장. 6살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들 (기원전 1년)

123:3.1 (1359.2) 어머니의 도움으로 예수는 이미 아람어의 갈릴리 사투리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는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어를 그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마리아도 그리스어를 약간 알았지만, 요셉은 아람어와 그리스어를 모두 유창하게 할 수 있었다. 그리스어 교본으로는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선물로 받은 히브리 경전의 사본—시편을 포함한 율법서와 예언서의 완벽한 해석본—이 사용되었다. 나사렛 전체에, 그리스어로 번역된 전권(全卷)의 성서 사본이 두 개밖에 없었으며, 그 중 하나를 이 목수의 가정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찾아오게 되었고, 예수는 자라나면서 진지한 학도들과 진심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끝없이 접할 수 있었다. 예수는 이 해가 끝나기 전에 이 귀중한 책의 보관 임무를 맡게 되었고, 또 그의 여섯 번째 생일에는 이 신성한 책은 알렉산드리아 친척들과 친지들이 자기에게 준 선물이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벌써 그 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

123:3.2 (1359.3) 예수가 어린 시절에 첫 번째로 큰 충격을 체험한 것은, 그가 아직 채 여섯 살이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에게는 자기 아버지—적어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하면—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방금 발생했던 약한 지진의 원인에 대한 예수의 질문에, 아버지가 “내 아들이, 난 실제로 모르겠구나.”라고 대답하자, 호기심이 많은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는지 상상해 보라. 그래서 예수는 그의 육신적인 부모가 모든-지혜의 그리고 모든 것을-아는 것이 아님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길고 당황스러운 각성을 하기 시작하였다.

^{123:3.3 (1359.4)} 요셉의 첫 번째 생각은, 지진은 하느님이 일으킨 것이라고 예수에게 말해주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순간적으로, 그런 대답은 즉각적으로 더 어렵고 당황스런 질문을 야기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 대답을 피하였다. 예수가 아주 어렸을 때에도 자연현상이나 사회적 현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은 모두 하느님이나 악마의 책임이라고 대답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유대 민족의 일반적인 신앙과 마찬가지로, 예수도 정신적이고 영적인 현상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으로서 선한 영(靈)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교리를 기꺼이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현상들에 대해서,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영향으로 돌리려는 것에 매우 어려서부터 회의를 가졌다.

123:3.4 (1359.5) 예수가 아직 여섯 살이 되기 전인 기원전 1년 초여름에, 사가리아와 엘리자벳이 자기들의 아들 요한을 데리고 나사렛 가족을 찾아왔다. 이 기간 동안 예수와 요한은 매우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그들의 기억 속에 첫 번째 만남으로 간직되었다. 이들은 겨우 며칠밖에 머물지 못하였지만, 이 부모들은 아들들의 장래를 비롯하여 많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른들이 의논에 열중하는 동안, 그 소년들은 지붕 위에 있는 모래 상자에서 벽돌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또 진짜 소년다운 여러 가지의 놀이를 하며 즐겼다.

123:3.5 (1359.6) 예루살렘 근처에서 왔던 요한과 만난 후, 예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안식일의 의식(儀式)들이나 회당에서의 설교 그리고 연례적인 기념일 축제들의 의미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질문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이러한 모든 절기들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첫 번째 절기는 겨울철에 행해지는 등불을 밝히는 축제로, 8일간

계속되었으며, 첫째 날 밤에 한 개의 촛불을 켜고, 매일 밤마다 등불을 한 개씩 늘려 가는 것이다; 이것은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모세의 예배봉사들이 회복된 후에 성전의 봉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초봄의 부림절 축제로, 에스더와 그녀에 의한 이스라엘의 해방을 축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장엄한 유월절 축제가 이어지며, 이 때 어른들은 가능한 한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모여 축하를 하고, 집에서는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누룩 넣지 않은 빵만 먹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다. 그 다음은 추수를 거두어들이는 첫-열매의 축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엄숙한 절기로서, 속죄의 날인 신년(新年)의 축제였다. 이러한 축제일들과 기념일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어린 예수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그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보았고, 그런 후에는 천막축제 축제의 즐거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때 모든 유대 민족은 여름 휴가철이었고, 밖에 초막을 짓고 야영을 하면서 환희와 즐거움을 만끽하였다.

123:3.6 (1360.1) 같은 해 기간 중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드리는 기도들에 대하여 그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 예수는

자신의 땅에서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말할 것을 고집하였다. 신(神)과의 엄숙하고도 존경이 담긴 교통의 형식으로부터 이탈된 이러한 방식은 그의 부모를, 특히 그의 어머니를 약간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그에게 고치라고 설득하지는 않았다; 그는 가르침을 받았던 그대로 기도를 드린 후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잠깐 이야기하는” 기도를 하기를 주장하였다.

123:3.7 (1360.2) 같은 해 6월, 요셉은 나사렛에 있는 가게를 그의 형제들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건축자로서 공식적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 해가 가기 전에 그 가족의 수입은 세배 이상 늘어났다. 요셉이 죽기 전까지 이 나사렛 가족은 다시는 극심한 가난을 겪지 않았다. 가족은 점점 불어났고 계속되는 교육과 여행에 많은 돈을 쓰게 되었지만 요셉의 수입도 증가하는 경비 못지않게 계속하여 늘어났다.

123:3.8 (1360.3) 이 후 몇 년간 요셉은 나사렛과 그 근방에서 건축한 것 뿐 아니라, 가나, 베들레헴 (갈릴리에 있는), 막달라, 나인, 세포리, 가버나움, 그리고 엔도르 등지에서 상당히 많은 작업을 하였다. 야고보가 집안일과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주기에 충분할 만큼 자라게 되자,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집을 떠나 근방의 성읍과 마을들을 자주 여행하였다. 예수는 관찰력이 예리하였고 그래서 집을 떠난 이 여행들에서 많은 실천적인 지식들을 얻었다; 이렇게 그는 사람에 대해 또 이 세상에서 그가 살았던 방법에 대한 지식을 부지런히 축적해 두었다.

123:3.9 (1360.4) 이 해에 예수는 가정 기강과 가족 협동의 요구에 맞도록 그의 강렬한 감정과 활력에 넘치는 충동을 자제하는데 많은 진보를 보였다. 마리아는 자애로운 어머니였지만 동시에 매우 공평하고 엄격하게 단련을 시키는 자였다. 그러나 요셉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를 더 많이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그는 그 소년의 곁에 앉아서, 가족들 전체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개인적 욕망을 자제하는 단련에서 비롯되는 제약의 필요성에 대한 실제 이유와 그 이면적인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실천 관행이었다. 그 상황이 예수에게 다 설명되었을 때, 그는 항상 부모의 바램들과 가족의 규정들에 현명하게 그리고 기꺼이 협조하였다.

123:3.10 (1360.5) 예수는 낮에는 꽃들과 식물들에 대해 그리고 밤에는 별들에 대해 연구하는 일에 여가시간의 대부분—어머니가 집안 일로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을 보냈다. 그는 나사렛의 엄격한 가정 속에서 자신의 일상적인 취침시간을 훨씬 넘은 시간까지 자지 않은 채 누워서 별이 가득한 하늘을 신기롭게 응시하기를 좋아하는 별스러운 경향을 보였다.

제 4 장. 7살 되던 해(서기 1년)

123:4.1 (1361.1) 이 해는 예수의 일생에 정말로 사건 많은 한 해였다. 1월 초 갈릴리에는 굉장한 폭설이 발생하였다. 눈이 2피트가 넘게 왔으며, 이것은 예수의 일생 동안에 가장 많이 온 눈이었고 나사렛에서는 100년 이래 최대의 폭설이었다.

123:4.2 (1361.2) 예수 시대의 유대인 아이들의 놀이는 비교적 제한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자기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본받아 그들에게는 좀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었다. 그들은 결혼식이나 장례식 놀이, 그들이 자주 목격하고 또 호화로운 모습인 예식들을 흉내 내며 놀았다.

그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놀았지만, 후대의 아이들이 대단히 즐겼던 그런 조직화된 오락은 거의 없었다.

123:4.3 (1361.3) 예수는 이웃집 소년과 그리고 나중에는 동생 야고보와 함께, 가족이 경영하는 목공소 한쪽 구석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그곳에서 톱밥과 나무토막들을 가지고 매우 재미있게 놀았다. 안식일 날에는 어떤 놀이들이 금지되었는데, 예수로서는 그것들이 무슨 해(害)가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부모가 원하는 바를 따르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예수는 유머 감각이 뛰어났고 노는 데 소질이 있었으나 그 시절 그 세대의 환경으로는 그런 자질을 나타내 보일 기회가 거의 잘 제공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열네 살까지, 예수는 대부분의 시간을 명랑하고 밝게 보냈다.

123:4.4 (1361.4) 마리아는 집에 붙어 있는 축사 지붕에 비둘기 집을 마련해 놓았고, 그들은 비둘기를 팔아 특별 자선기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예수는 그것에서 십일조를 떼어 회당의 직원에게 주고 난 후 그 나머지 기금을 맡아 관리-운영하였다.

123:4.5 (1361.5) 이때까지 예수는 실제 사고는 단 한번밖에 체험하지 않았는데, 천막으로 지붕을 만든 침실로 올라가는 뒷마당 돌계단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이 사고는 7월에 동쪽으로부터 불어 온 예기치 못한 모래폭풍 때문이었다. 고운 모래를 싣고 오는 이 열풍은 보통 우기(雨期)에 불어 왔으며 3월과 4월에 특히 심하였다. 7월에 이 폭풍이 분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것이었다. 이 폭풍이 왔을 때 예수는 평소처럼 지붕 위에서 놀고 있었으며, 건기(乾期) 중에는 이곳이 그의 놀이방 역할을 했던 것이다. 계단을 내려오던 그의 눈에 모래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가 있는 후, 요셉은 계단 양옆에 난간을 설치하였다.

123:4.6 (1361.6) 이 사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미리 방지될 수 없었다. 그것은 이 아이를 보호하기로 되어 있던 일시적인 중도 수호자들, 그 소년을 보호하도록 임명되어 있는 한 명의 1차 중도자와 다른 한 명의 2차 중도자의 실책이라고 볼 수 없었다; 또한 수호 세라핌천사의 책임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요셉이 엔도르에 간 사이에 발생한 이 조그만

사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매우 염려가 되어, 어리석게도 몇 개월 동안이나 예수를 자기 옆에 붙들어 두려고 애썼다.

123:4.7 (1361.7)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늘 발생하게 되는 이러한 물질적 사고에, 천상의 개인성들은 독단적으로 끼어들지 않는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단지 중도 창조체만이 운명의 남녀들의 개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물질적인 조건들에 개입할 수 있는데, 아무리 특별한 상황일지라도 이들은 자기 상급자들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을 때에만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다.

123:4.8 (1361.8) 그러나 이것은, 호기심 많고 탐구심 많은 이 아이에게 결과적으로 발생했던 많은 사소한 사고들 중의 하나였을 뿐이었다. 만약 너희가 활동적인 한 소년의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본다면,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관념을 아주 잘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가 자기 부모들, 특히 그의 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우려를 끼치게 했었는지도 쉽게 상상이 갈 것이다.

123:4.9 (1362.1) 나사렛 가족의 네 번째 아이 요셉이 서기 1년 3월 16일 수요일에 태어났다.

제 5 장. 나사렛에서의 학교 시절

123:5.1 (1362.2) 예수는 이제 일곱 살이 되었으며, 이 나이에 유대인 아이들은 회당학교에서 공식적인 교육을 받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같은 해 8월 나사렛에서, 예수는 사건 많은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소년은 이미 두 가지 언어들, 아람어와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읽고 쓰고 그리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히브리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는 앞으로 해 나갈 새로운 학교생활을 진심으로 손꼽아 기다렸다.

123:5.2 (1362.3) 3년 동안—그가 열 살이 될 때까지—, 그는 나사렛 회당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녔다. 3년의 이 기간 동안 그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있는 그대로 율법서의 기초 과정을 공부하였다. 그 후 3년 동안 그는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율법에 있는 보다 어려운 가르침들을 크게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암기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는 열세 살이 되었을 때, 이 회당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교육받은 “계명의 아들”로서—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국민으로서 책임 있는 시민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유월절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이 부여됨— 회당 관료들로부터 부모에게 인계되었다; 따라서 그 해에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유월절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123:5.3 (1362.4) 나사렛에서는 학생들이 마루에 반원형(半圓形)으로 앉았으며, 카잔이라고 불리는, 회당 관리자인 그들의 선생님은 그들과 마주보고 앉았다. 그들은 레위기부터 시작하여 다른 율법서 들을 차례로 공부하였고, 그 다음에는 예언서와 시편을 공부하였다. 나사렛의 회당은 히브리어로 쓰인 성서 전권(全卷) 하나를 갖고 있었다. 열두 살까지는 성서만을 공부하였다. 여름철에는 수업시간을 많이 단축하였다.

123:5.4 (1362.5) 예수는 히브리어를 일찍 통달하였으며, 어린 나이에든 불구하고, 우연히 어떤 저명한 방문자도 나사렛에 체류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정기적인 안식일 예배봉사 때 회당에 모인 신자들에게 히브리어 경전을 읽어달라는 부탁을 자주 받곤 하였다.

123:5.5 (1362.6) 물론, 이 회당 학교들에는 교과서들이 없었다. 수업 방식은, 카잔이 한 문장씩 읽어 나가면 학생들이 한 음성으로 그를 따라 반복해 읽었다. 기록된 율법 책을

접하게 되면, 학생들은 그것을 크게 읽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였다.

^{123:5.6 (1362.7)} 다음으로, 그의 공식적인 학교생활에 이외에, 예수는 자기 아버지의 수리소를 거쳐 지나가는 사람들로써 세계 방방곡곡으로부터 오는 많은 인간 본성들과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더 나이가 들게 되자, 그는 쉬거나 요기하려고 우물 근처에서 머물고 있던 카라반들과도 자유스럽게 어울렸다. 유창한 그리스어 덕분에 예수는 대부분의 카라반 여행자들이나 지휘-안내자들과 대화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123:5.7 (1362.8)} 나사렛은 카라반들이 경유하는 곳이었고 여행 경로들의 교차점이었으며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동시에 그곳은 유대의 전통적인 율법을 개방적으로 해석하는 중심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갈릴리에서는 유대 지방에서 있던 그들의 실천 관행보다 더욱 자유스럽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였다. 그리고 갈릴리의 모든 도시들 중에서도 나사렛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되면 더러워진다는 두려움에서 연유된 사회적 제약에 대해서도 가장 개방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여건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 정도였다.

123:5.8 (1363.1) 예수는 도덕적인 교육과 영적 수양을 주로 가정에서 받아들였다. 그의 지적이고 신학적인 교육은 카잔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그의 실제 교육—일생의 어려운 문제들과 거루는 실재적 시험에 대비한 가슴과 마음의 준비—는, 동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그 속에서 받았다. 연령에 상관없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가 어울린 사람들과의 이러한 친밀한 교제는 그에게 인간 종족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잘 제공하였다. 예수는 그 속에서 매우 깊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속들이 납득하고 그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다.

123:5.9 (1363.2) 회당에서 교육을 받는 전 과정 동안, 그는 세 가지 언어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큰 이점을 갖고 있었던, 매우 총명한 학생이었다. 나사렛의 카잔은 예수가 그의 학교 안에서 과정을 완결하는 때에, “그 소년을 가르칠 수

있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예수의 탐구적인 질문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요셉에게 털어놓았다.

123:5.10 (1363.3) 예수는 자신의 전체 공부 과정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으며 회당에서의 주기적인 안식일 설교로부터 많은 감명을 받았다. 안식일에 나사렛에 머물게 된 저명한 방문자들에게 회당에서 설교하도록 부탁하는 것이 관례였다. 예수는 자라면서, 유대인들 전체의 세계에서 위대하게 손꼽히는 많은 사상가들이 해석하는 견해들을 들었고, 또한 나사렛에 있는 회당이 히브리 사상과 문화의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중심지였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견해도 들을 수 있었다.

123:5.11 (1363.4) 일곱 살이 되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막 의무교육법을 제정했다),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탄생 기념 성구(聖句)'를 선택하여 공부하는 동안 내내 하나의 황금률(黃金律)이 되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그들이 열세 살이 되어 졸업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성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곤 하였다. 예수가 선택한 성구는 예언서인 이사야서에 있는 것으로: “주 하느님의

영이 내게 임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슬픔과 절망에 빠진 자를 감싸 치료하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영적으로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는 내용이었다.

123:5.12 (1363.5) 나사렛은 히브리 민족의 24명의 제사장이 위치하는 중심지들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갈릴리 지방의 제사장들은 전통적인 계명들의 해석에 있어서 유대 지방의 학자들이나 랍비들보다 좀 더 개방적이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역시 좀 더 자유로웠다. 그래서 요셉은 안식일 오후에 예수를 데리고 종종 산책을 가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사방의 갈릴리 지방이 흰히 내려다보이는, 집 근처의 높은 언덕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였다. 맑은 날에는 북서쪽으로 갈멜산의 한쪽 능선이 바다를 향해 뻗어 내려간 것도 볼 수 있었다; 예수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오랫동안 전통으로 이어지는 히브리 예언자들 중에서 초기 사람인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그는 아합을 책망하고 바알의 사제들의 가면을 벗긴 사람이었다. 북쪽으로는 눈 덮인 헤르몬

산봉우리가 장엄한 모습으로 하늘 위로 우뚝 솟아 있었고, 높이가 3,000피트나 되는 상부 능선은 만년설로 빛나고 있었다. 멀리 동쪽으로는 요단 계곡을 식별할 수 있고, 더 멀리로는 모압의 험한 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남쪽과 동쪽으로는, 데카폴리스에 있는 그리스-로마 풍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대리석 벽에 해가 비칠 때, 그들은 원형 극장들과 허세를 부리는 듯이 서있는 높은 신전들과 함께 그 도시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서편으로 지는 해를 향하여 거닐 때에는, 서쪽으로 멀리 지중해의 배들을 식별할 수 있었다.

123:5.13 (1364.1) 예수는 나사렛을 드나드는 카라반 행렬들을 사방으로부터 관찰 할 수 있었고, 남쪽으로는 길보아산과 사마리아까지 뻗어있는 에스드렐론의 광활하고 비옥한 땅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123:5.14 (1364.2) 언덕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이는 경치를 내려다보지 않을 때에는, 그들은 시골길을 산책하며, 계절에 따라 변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연을 공부하였다. 예수의 어린 시절의 훈련은 가정에서 받은 것 이외에도,

자연과 함께 존경이 담기고 공경하는 접촉으로
했었어야만 했다.

123:5.15 (1364.3) 여덟 살이 되기 전에, 그는 나사렛의 모든
어머니들과 젊은 여인들에게도 잘 알려졌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접촉하고 성읍 전체에 관한 한담을 나누던 사고
중심지들 중의 하나였던, 그의 집 가까이 있는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같은 해에 예수는
집에서 기르는 소의 우유를 짜고 다른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배웠다. 그 해와 그 다음 해에, 그는 또한 치즈 만드는
법과 천을 짜는 법도 배웠다. 열 살이 되자, 그는 능숙하게
베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와 이웃 소년 야곱이
넷가 가까이에서 일하던 도공(陶工)과 친구가 된 것도 바로
이 때였으며; 나단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도자기 물레
위에서 흙을 주무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커서 함께
도공이 되겠다고 여러 번 다짐하였다. 나단은 이 아이들을
매우 좋아하였고, 종종 그들에게 진흙을 주어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그들에게 여러 다른 물건들과
동물들을 만드는 경쟁을 하게 하여 그들의 창조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려고 애썼다.

제 6 장. 8살 되던 해(기원후 2년)

123:6.1 (1364.4)

이 해는 학교에서 재미있게 보낸 한 해였다. 예수는 비범한 학생은 아니었지만, 매우 부지런하였고, 학생들 중에서 보다 진취성을 보이는 3분의 1에 속하였다. 그는 많은 일을 잘해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주일 정도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 일 주일 동안에는 대개, 예수는 막달라 근처의 갈릴리바다 해안에서 어부인 그의 삼촌과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나사렛에서 5마일 가량 남쪽으로 떨어진 농장에 있는 외삼촌(자기 어머니의 형제)과 시간을 보냈다.

123:6.2 (1364.5)

비록 그의 어머니는 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하였지만, 차츰 이렇게 집을 떠나 여행하는 것을 용납하게 되었다. 예수의 삼촌들과 숙모들은 모두 그를 매우 좋아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은 이해와 그 뒤의 몇 년 동안, 예수가 매 달 자기들 집으로 방문하게 하기 위하여 노골적으로 경쟁하곤 하였다. 삼촌의 농장을 방문한 그의 첫 번째(갓난아이 이후로) 일주일 동안의 여행은 이 해 1월에 있었으며, 갈릴리 바다에서의 일주일간의 첫 번째 고기잡이 체험은 5월에 발생하였다.

123:6.3 (1364.6) 이 무렵에 예수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수학선생을 만났으며, 그로부터 새로운 산술(算術)을 배웠고, 그 이후 여러 해 동안 수학 공부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숫자와 공간 그리고 비율에 대해 예리한 감각을 키웠다.

123:6.4 (1364.7) 예수는 그의 동생 야고보와 노는 것을 매우 즐기기 시작하였으며 이 해가 끝날 무렵에는 그에게 철자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123:6.5 (1364.8) 이 해에 예수는 낙농제품을 주는 대신으로 수금을 교습 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는 모든 음악적인 것을 남달리 좋아하였다. 나중에는 그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노래 부르는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선동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였다. 열한 살이 되었을 때, 예수는 능숙한 수금 연주자가 되었고 그의 비범한 연주 실력과 뛰어난 즉흥곡으로 가족과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무척 좋아하였다.

123:6.6 (1365.1) 예수가 학교에서 남들의 부러움을 살만한 계속적인 진보를 보이고 있을 동안, 부모들과 선생들에게는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계속적으로 과학과 종교에 대해 그리고 특별히 지리학과 천문학에 대해 난처한 질문들을 많이 하였다.

그는 특히 팔레스타인의 건기(乾期)와 우기(雨期)가 왜 존재하는 지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 또한 그는 나사렛과 요단 계곡의 온도가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그는 그러한 지적이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그치지 않았다.

^{123:6.7 (1365.2)} 그의 세 번째 남동생 시몬이 같은 해 서기 2년 4월 14일 금요일 저녁에 태어났다.

^{123:6.8 (1365.3)} 2월에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 학교의 선생들 중 하나인 나호르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가리아의 집을 방문한 후에, 비슷한 목적으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 나사렛에 왔다. 그는 요한의 아버지의 부추김을 받아 나사렛으로 오게 되었던 것이다. 처음에 그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예수의 솔직함과 비전통적인 태도에 다소 충격을 받으면서 예수의 이러한 태도를 갈릴리가 히브리 정통 교육과 문화에서 격리되어 있는 탓으로 돌렸으며, 그는 예수가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 문화의 중심지에서 교육과 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조언하였다. 마리아는 그의 설득에 거의 동의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맏아들이

메시아, 유대인의 해방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은 이를 주저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가 자라서 운명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였지만 그러한 운명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무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리라는 것에는 실제로 의심한 적이 결코 없었다. 나호르의 조언을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를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져 갔다.

123:6.9 (1365.4)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나호르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전적으로 예수에게 맡기자고 제안하였다. 예수는 주의 깊게 듣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 또한 이웃의 가장 친한 놀이 친구 야곱의 아버지인 석공(石工)과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였으며,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대답하기를, 자기 부모들과 충고자들의 의견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자기 자신은 어느 한쪽으로도 특별히 선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의논해” 보기로 결정하였지만, 거기에 대한 응답에

완전하게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내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집에 남아있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말하였으며, “나를 진정으로 알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나의 외모를 볼 수 있거나 또는 나의 마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인 낯선 사람들보다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위해 더욱 많은 것을 해 줄 수 있고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수 있을 것” 이라고 느꼈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들은 모두 그의 대답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으며, 나호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예수가 집을 떠나는 문제를 다시 고려하게 된 것은 여러 해가 지난 다음이었다.

제 124 편 예수의 유년기 후기

^{124:0.1 (1366.1)} 예수가 비록 학교 교육을 위하여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면 갈릴리에 있던 것보다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겠지만, 최소한의 교육적 인도를 받으면서 자신의 일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토록 훌륭한 환경을 누리는 동시에 문명화된 전 세계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몰려오는 여러 계층의 수많은 남녀 사람들과 빈번하게 접촉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만약 그가 알렉산드리아에 남아 있었다면, 그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오직 유대 계통의 교육밖에는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는 나사렛에서, 이방인들을 납득하는 데 더욱 수용적으로 그를 준비시키는 교육을 확보하였고 훈련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히브리 신학에 대한 동방 또는 바빌로니아적 시각과 서방 또는 그리스적 시각이 어떤 상대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더 뛰어나고 균형 잡힌 관념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제 1 장. 예수가 9살 되던 해(서기 3년)

124:1.1 (1366.2) 예수가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는 이 해에 자신의 남동생과 아기 여동생과 함께, 어린아이들이 흔히 앓는 사소한 병을 앓기도 하였다.

124:1.2 (1366.3) 학교 교육은 계속되었고, 그는 여전히 한 달에 한 주일 가량은 해방을 즐길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학생이었고, 아버지와 함께 이웃 도시로 여행을 하는 일과 나사렛 남쪽에 있는 삼촌의 농장에 머무는 일 그리고 막달라 지역으로부터 낚시 여행을 나가는 일에 자신의 여가 시간을 똑같이 할애하기를 계속하였다.

124:1.3 (1366.4)

형상들과 초상화들 그리고 그림들은 모두 본질적으로 우상이라는 카잔(선생)의 가르침에 대하여 예수가 감히 도전하려고 하였던 이 해 겨울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학교에서 발생하였다. 예수는 경치를 그리는 일 뿐 아니라 질그릇을 만드는 흙으로 매우 다양한 물체들을 만들기를 매우 좋아하였다. 그러한 행위들은 모두 유대인의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때까지 그는 그의 부모들의 반대를 어느 정도 무마시켜 왔기 때문에 그의 부모들은 그가 이러한 활동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용납하였다.

124:1.4 (1366.5)

그러나 예수가 목탄으로 학교 마루에 선생의 모습을 그리는 것을 철없는 학생들 중 하나가 발견하게 되자, 학교에서 이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 그림은 낮에 있었던 그대로 그곳에 있었고, 여러 명의 장로들이 그것을 본 후에, 그 위원회는 요셉을 방문하여 그의 장남이 그러한 불법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였다. 요셉과 마리아가, 다재다능하고 활동적인 자기 아들의 행동에 대하여 처음 듣는 불평은 아니었지만, 이번의 경우는 그를 향하여 심하게 쏟아 부어졌던 모든 비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었다. 예수는 뒷문 바로

밖에 있는 큰 바위 위에 앉아서, 자신의 예술 작품에 대한 비난에 한동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나쁜 짓이라고 취급받는 자신의 행위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그들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에 대해 분개하였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걸어가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대담하게 마주 섰다. 장로들은 크게 당황하였다. 몇몇 사람들은 재미있고 웃어넘기는 에피소드로 넘기려고 하였지만, 한 두 사람은 그 소년을 불경스럽거나 아니면 무엄한 아이라고 생각하는 듯하였다. 요셉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마리아는 화를 냈지만, 예수는 그의 말을 들어달라고 주장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자, 용기 있게 자기 관점을 옹호하였으며, 이 일뿐만 아니라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다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자기 아버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더할 나위 없는 자아-통제를 보이면서 발표하였다. 그러자 그 위원회의 장로들은 아무 말 없이 떠났다.

124:1.5 (1367.1) 마리아는 예수가 학교에서는 이러한 미심쩍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조건으로 집에서만큼은 흠으로 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라고 요셉을 설득해 보고자 애썼지만, 그는 율법의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을 따라야만 한다고 고집하였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예수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사는 동안에는 어떤 물체와 비슷한 모양으로 물건을 만들거나 그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한 일이 그릇되었다는 것에 수궁이 가지 않았으며, 본인의 어린 시절에 큰 고난을 주는 원인 중 하나이기는 하였지만 자신이 즐기는 그러한 놀이를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도 수궁할 수 없었다.

124:1.6 (1367.2) 6월 하순, 예수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다볼산 정상에 처음으로 올라갔다. 맑은 날씨였으며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다. 이것은 아홉 살 난 그 소년에게, 인도와 아프리카 그리고 로마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전 세계를 응시한 것과 같았다.

124:1.7 (1367.3) 예수의 둘째 여동생인 마르다는 9월 13일 목요일 밤에 태어났다. 한동안 집에 머물러 있었던 요셉은 마르다가 태어난 지 3주가 지난 후 자기 집에 덧붙여서 작업장 겸 침실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는 예수를 위하여 작은 작업대를 만들어 주었고, 예수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연장들을 갖게 되었다. 예수는 여러 해 동안 틈나는

대로 이 작업대에서 일을 하였고, 멍에를 만드는데 상당한 숙련자가 되었다.

^{124:1.8 (1367.4)} 같은 해 겨울과 그 다음해 겨울은 나사렛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였다. 예수는 산 위에 덮인 눈을 보았었고, 나사렛에도 몇 번 눈이 오기도 하였으나 땅위에는 오래 남아있지 않았었는데; 이 해에 그는 처음으로 얼음을 보게 되었다. 물이 고체나 액체, 또는 기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소년으로 하여금 물리적인 세계와 그 구조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하였는데, 그는—끓는 주전자에서 증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보고 오랫동안 골똘히 생각했었다—; 성장 과정에 있는 이 소년 안에서 체현하는 개인성은 아직 이것이 전부였지만, 한편 광활한 우주의 모든 사물의 실재적인 창조자이자 조직자였다.

^{124:1.9 (1367.5)} 나사렛의 기후는 혹독하지 않았다. 1월은 가장 추운 달이었고, 평균 기온은 화씨로 50도 정도였다. 7월과 8월은 가장 더운 달로, 평균 기온은 75도에서 90도 정도였다. 팔레스타인에는 산으로부터 요단강과 사해에 이르기까지 한대(寒帶)와 열대(熱帶)기후가 두루

분포되어 있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다양한 모든 기후 조건에서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124:1.10 (1367.6) 가장 무더운 여름철 동안에도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서쪽으로부터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매년 시시때때로 동쪽의 사막으로부터는 뜨거운 바람이 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불어왔다. 이 뜨거운 바람은 대개 우기(雨期)가 끝날 무렵인 2월부터 3월까지 불어왔다. 우기에 해당하는 11월부터 4월 사이에는 시원한 소나기가 내렸고 비가 끊임없이 오는 것은 아니었다. 팔레스타인에는 여름과 겨울, 우기와 건기(乾期)의 두 계절만 있었다. 1월에는 꽃들이 피기 시작하였으며, 4월말이 되면 전 지역은 꽃들이 만발한 정원이 되었다.

124:1.11 (1367.7) 같은 해 5월 예수는 그의 삼촌의 농장에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는 일로 도움을 주었다. 13세가 되기 이전에 그는 쇠를 다루는 일을 제외하고는 나사렛 주변에 있는 남자와 여자들이 종사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실천적인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터득하게 되었으며, 자기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몇 달 동안 대장간에서 일하기도 하였다.

124:1.12 (1368.1) 작업이 없거나 카라반들의 행렬이 드물 때에는, 예수는 자기 아버지를 따라 가까운 곳에 있는 가나, 엔도르, 나인 등으로 여러 차례 취미 여행 또는 출장 여행을 하였다. 그는 어린 나이에든 불구하고, 나사렛으로부터 서북쪽으로 3마일 남짓 떨어져 있는, 세포리에 자주 갔으며, 그곳은 기원 전 4년부터 서기 25년까지 갈릴리의 수도이자 헤롯 안티파스의 거처였다.

124:1.13 (1368.2) 예수는 육체적, 지적, 사회적,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였다. 그가 집을 떠나 여행함으로써 자기 가족을 더욱 잘 납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때부터는 그의 부모마저도 그를 가르치는 것만큼, 그로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예수는 어린 시절부터 이미 시원(始原)적인 깊은 사색가(思索家)였으며, 능숙한 선생이었다. 그는 소위 “구전(口傳)되는 율법”이라는 모든 것을 항상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그는 언제나 가족의 실천 관행에 자기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자기 나이 또래의 아이들과도 잘 지냈으나 그들의 느린 정신적 반응 때문에 자주 실망하곤 하였다. 그가 10살이 되기 전에, 그는 7명의 소년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이들은 보다 많은 것을 습득한 훌륭한 어른—육체적, 지적, 그리고

종교적으로—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모인 모임이었다. 이러한 소년들에게 예수는 많은 새로운 놀이들과 개선된 다양한 육체적 오락 방법들을 잘 소개하였다.

제 2 장. 10살 되던 해(서기 4년)

124:2.1 (1368.3) 7월의 첫 번째 안식일이었던 7월 5일, 아버지와 함께 시골길을 산책하던 예수는, 자기 일생의 사명의 비상한 본성에 대하여 자아-의식적이 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감정과 관념을 처음으로 표현하였다. 요셉은 자기 아들의 중대한 말들을 주의 깊게 들었을 뿐 그것에 대해 거의 대꾸하지 않았다; 참고가 될 만한 말을 자진해서 해주지는 않았다. 그 다음 날 예수는 자기 어머니와 비슷한 이야기를 좀 더 오랫동안 하였다. 마리아도 그 소년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으나 그녀 역시 참고가 될 만한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예수가 자기 개인성의 본질과 이 세상에서의 자기 사명의 성격에 관하여 자신의 인식 속에서 점점 더 증가되는 이 계시를 그의 부모에게 다시 언급한 것은 거의 2년이 지난 후였다.

124:2.2 (1368.4) 그는 8월에 회당에 소속된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는 학교에서 질문을 그치지 않음으로써

계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했다. 그는 점점 더 나사렛 온 동네에 다소간의 소동을 일으켰다. 그의 부모는 걱정스럽게 하는 그의 질문들을 그치게 하는데 지쳤으며, 그의 담임선생은 그 소년의 호기심과 통찰력, 그리고 지식에 대한 열망에 대하여 크게 흥미를 갖게 되었다.

124:2.3 (1368.5) 예수의 놀이 친구들은 그의 행위에서 초자연적인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그는 친구들과 같았다. 학업에 대한 그의 관심은 평균이상이었으나 아주 특출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질문을 하였다.

124:2.4 (1368.6) 그에게 가장 특이하고 눈에 띄는 특색이 있었다면, 아마 그것은 그가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는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 나이에 비해 몸집이 좋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가 불공정을 당하였거나 개인적 모독을 당하는 경우일지라도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 않는 것은 그의 놀이 친구들에게 이상하게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그는 자기보다 한 살 더 많은 이웃 친구 야곱 덕분에, 이 특색으로 인한 곤란을 크게 겪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석공(石工)이었는데, 요셉의

사업상 연관-동료였다. 야곱은 예수를 무척 탄복하였으며, 예수가 육체적으로 싸우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를 괴롭히려는 아이들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을 자기 일로 여겼다. 나이가 많은 거친 아이들이 예수가 온순하다는 평판을 믿고, 여러 차례 그를 공격하였지만, 그의 자아-임명한 투사이며 언제든지 방어할 준비가 되어있는 석공의 아들 야곱의 재빠르고 정확한 반격에 그들이 오히려 항상 당하곤 하였다.

124:2.5 (1369.1) 예수는 그들의 시절과 세대의 더욱 높은 이상들을 대표하는 나사렛 아이들의 우두머리로서 널리 인정받았다. 그는 공정할 뿐 아니라 또한 사랑으로 보이면서도 분별 있는 열정에 가까운 드물지만 납득하는 동정심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그의 유년기 연관 동료들로부터 실제로 사랑을 받았다.

124:2.6 (1369.2) 이 해부터 그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는 연상(年上)의 사람들과 문화, 교육,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에 대하여 대화 나누기를 좋아하였으며, 그의 깊은 추리력과 예리한 관찰력 때문에

어른들이 매료되어 언제든지 그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그가 가정을 부양할 책임을 갖게 되기까지, 그의 부모는 그가 선호하는 것처럼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같은 나이이거나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려고 꾸준히 노력하였다.

124:2.7 (1369.3) 같은 해 말경에, 그는 자기 삼촌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두 달 동안 고기를 잡는 체험을 하였으며, 아주 훌륭하게 해냈다. 그는 어른이 되기도 전에 이미 능숙한 어부가 되어 있었다.

124:2.8 (1369.4) 그의 육체적인 성장은 계속되었고; 그는 학교에서는 남들보다 앞서 있고 특권을 누리는 학생이었다; 그는 바로 밑에 있는 동생보다 3살 반이나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어린 동생들과 집에서 아주 잘 어울려 지냈다. 그는 몇몇 우둔한 아이들의 부모들로부터 건방지다고, 아이답지 않고 겸손한 구석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사렛에서 좋은 평을 듣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또래 모임과 놀이를 할 때, 많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보려는 경향(傾向)을 점점

더 많이 현시했다. 그는 태생적으로 선생이었으며, 놀이를 할 때에도 단순하게 그러한 태도를 억제하지 못함을 보였다.

124:2.9 (1369.5) 요셉은 산업이나 교역에 비해서 농업이 유리하다는 점을 일찍부터 예수에게 설명하면서,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갈릴리는 유대 지방보다 더 아름답고 번영하였으며, 생활비는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방의 4분의 1정도면 충분하였다. 그곳은 농업에 종사하는 마을들과 날로 번창하는 산업 도시들이 있는 지역이었으며, 5,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성읍이 200개가 넘었고, 15,000명이 넘는 성읍도 30개 이상 있었다.

124:2.10 (1369.6) 그가 아버지와 함께 처음으로 갈릴리 바다의 어업 현장을 관찰하러 왔을 때, 예수는 어부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려 하였었지만; 자기 아버지의 직업에 가까이 있었던 영향으로 목수가 되었고, 후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력이 작용하여 새로운 계층을 가르치는 종교적인 선생이 되는 최종적인 선택을 하도록 인도되었다.

제 3 장. 11살 되던 해(서기 5년)

124:3.1 (1369.7) 이 해에 그 소년은 자기 아버지와 집을 떠나 여러 차례 여행을 하였지만, 그의 삼촌의 농장도 자주 방문하였고, 때로는 막달라로 가서 그 도시 근처에 본거지를 만들어 둔 삼촌과 함께 고기를 잡았다.

124:3.2 (1369.8) 요셉과 마리아는 가끔씩 예수를 특별히 편애(偏愛)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가 언약의 아이, 운명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설하고 싶은 유혹에 자주 빠졌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둘 모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매우 현명하고 영리하게 처신하였다. 아주 미약한 정도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를 편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이 몇 번 있었을 때마다, 그 소년은 이러한 특별한 배려를 즉각 거절하였다.

124:3.3 (1370.1) 예수는 카라반들을 상대하는 상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여행자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그의 나이를 고려할 때 매우 기이하게 보이는 국제적 관련사들에 대하여 많은 정보들을 얻었다. 이 해는 그가 무척 자유롭게 놀면서 아이로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던 마지막 해였다. 이때로부터 이 소년의 일생에는 많은 어려움과 책임이 급속도로 배가(倍加)되었던 것이다.

124:3.4 (1370.2) 서기 5년 6월 24일, 수요일 저녁, 유다가 태어났다. 이 일곱 번째 아이의 탄생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생겼다. 마리아는 요셉이 집에 머물러 있었던 몇 주 동안 매우 심한 병을 앓았다. 예수는 자기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과 어머니의 심각한 병으로 인하여 많은 일들로 매우 바쁘게 지냈다. 이 소년은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맏아들에게 일반적으로 이러한 임무가 맡겨지는 시기가 되려면 아직도 1년 내지 2년 더 있어야 했지만, 그의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할 때부터—그가 열 한 살이 되기 직전—,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도맡아 해야 하게 되었다.

124:3.5 (1370.3) 매주 하루 저녁은 카잔이 예수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가 히브리 경전에 숙달되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자기 학생의 향상되는 실력에 매우 흥미를 가졌으며; 그러므로 여러 가지로 그를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 이 유대인 선생은 자라나는 이 심성에 큰 영향을 주었으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박식한 랍비들

밑에서 학업을 계속하라는 자신의 모든 권고에 대해
예수가 왜 무관심한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124:3.6 (1370.4) 5월 중순경, 예수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데카폴리스 지방의 주요 그리스 도시이며, 베스쉬안
지역의 고대 히브리 도시인 스키토폴리스로 사업차
여행을 하였다. 이 여행 중에 요셉은 예수에게 사울 왕과
필리스틴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었다. 예수는 소위 이방인 도시라고
불리는 이 도시들의 깨끗한 모습과 잘 정돈된 배치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노천극장을 보고 매우 놀랐으며,
“이방” 하느님들에게 바쳐진 아름다운 대리석 신전들을
보고 감탄하였다. 요셉은 이 아이가 이것들을 이토록
좋아하는 것에 대해 당황하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칭찬함으로써 예수의 이러한
감정을 바꾸어 보려고 하였다. 예수는 이미 나사렛의
언덕에서 이 그리스 도시들을 신기한 듯이 바라본 적이
종종 있었고 대규모의 공공 사업들과 화려한 건물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질문을 하였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항상 대답을 회피하려고 했었다.

그들은 이제 그 이방인 도시의 아름다움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요셉은 예수의 질문을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다.

124:3,7 (1370,5) 바로 이 때, 데카폴리스 지방에 있는 그리스 도시들이 대중들 앞에서 서로 육체적인 용맹을 실증하고 연례적으로 경쟁하는 시합이 스키토폴리스의 원형극장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며, 예수는 자기 아버지에게 그 시합을 보여 달라고 졸랐고, 그가 너무 끈질기게 우겼기 때문에 요셉은 그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 소년은 그 시합에 몹시 감동되었고, 육체적인 발달과 경기 기술들을 시범으로 실증하는 영에 열광적으로 매료되었다. 요셉은 자기 아들이, “이방”의 허영심으로 들떠 있는 이러한 시범경기들을 열광적으로 관람하는 것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 모든 시합들이 완결된 후에, 예수가 그것들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나사렛에서도 사정이 허락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건전한 야외 육체 운동을 하면 좋겠다는 그의 말을 듣고 요셉은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 요셉은 이러한 실천 관행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 예수와 오랫동안 진지하게 이야기하였으나, 그는 그 소년이 설득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124:3.8 (1371.1) 예수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화내는 것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게 되었는데, 그 날 밤 여관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잊고 있었던 그 소년이, 집으로 돌아가면 나사렛에 원형극장을 짓자고 제의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 요셉은 맏아들이 이렇게 비유대적인 정서에 젖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의 온순한 성품을 잊은 채 예수의 어깨를 잡고 화난 음성으로, "아들아, 네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그러한 악한 말을 내 앞에서 하지 마라."라고 소리쳤다. 예수는 자기 아버지가 흥분된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매우 놀랐으며; 그 전에는 자기 아버지의 분개로 인하여 개인적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므로 말문이 막힐 정도로 몹시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단지 "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소년은 시합이나 다른 운동 경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124:3.9 (1371.2) 그 이후,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 식으로 지은 원형극장을 보았고, 이러한 것들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왜 그토록 혐오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일생 동안에 건전한 오락에

대한 관념을 자신의 개인적 계획들 속에 도입해 보려고 시도하였으며, 유대 실천 관행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의 12명의 사도들을 위한 후일의 정규 활동 계획에 이것을 포함시키려고 시도하였다.

124:3.10 (1371.3) 11살이던 이 해가 끝날 무렵까지는, 예수가 생기고, 잘 성장하고, 적당히 유머가 있고, 그리고 상당히 밝은 심성을 가진 소년이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깊은 묵상과 진지한 깊은 사색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는 자기 가족을 부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한 자신의 소명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였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유대 민족을 향상시키는 것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제 4 장. 12살 되던 해(서기 6년)

124:4.1 (1371.4) 이 해는 예수의 일생에서 사건 많은 한 해였다. 그는 학교에서 계속하여 진보를 이루었고, 자연에 대한 공부에 지칠 줄 몰랐으며, 동시에 그는 사람들이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공부도 점점 더 추진하였다. 그는 자기 집에 있는 목공소에서 정기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였으며, 자기 수입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같은 해에 예수는 그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가정 안에서 비밀을 지키는 지혜를 터득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전에 마을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던 그 원인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는 자기 동료들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숨기면서 점점 더 사려 깊은 사람이 되어갔다.

124:4.2 (1371.5) 그 한 해 동안, 그는 자신의 사명의 본질에 대하여 실재적으로 의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의 불확실성을 체험하게 되었다. 자연적으로 성장한 그의 인간 마음으로는 자신의 이원적(二元的)인 본성의 실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단일 개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의식으로 하여금 바로 그 개인성과 연관된 그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이중적 기원을 갖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124:4.3 (1371.6) 이때부터 그는 자기 형제자매들과 더욱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점점 더 재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들의 번영과 행복에 대하여 항상 연민을 갖고 특별히 배려하였으며, 자신이 대중을 위한 사명활동을 시작하기

바로 전까지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좀 더 설명하자면: 그는 야고보, 미리암, 그리고 더 어린(아직 태어나지 않은) 두 동생인 아모스와 룻과 더없이 친하게 지냈다. 그는 언제나 마르다와 잘 지냈다. 그가 집에서 가졌던 문제는 주로 요셉과 유다의 충돌에서 야기되었는데 특히 유다 때문이었다.

124:4.4 (1372.1)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인간성과 신성을 복합적으로 갖춘, 전례가 없는 이런 아이를 양육하는 임무는, 하나의 괴로운 체험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어버이로서의 자신들의 임무를 매우 성실하고 성공적으로 이행했다는 것을 크게 신임받아 마땅하다. 예수의 부모들은 자기들의 만아들 속에 초인간적인 어떤 존재가 들어있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지만, 그들은 이 약속의 아이가 정말로 그리고 참으로 이 지역우주의 사물과 존재들을 창조한 실재적인 창조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의 아들 예수가 정말로 필사자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온 우주 창조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죽었다.

124:4.5 (1372.2) 같은 해에, 예수는 음악에 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집안에서는 그의 남동생과 여동생들을 계속해서 가르쳤다. 예수의 사명에 대한 본질에 관하여 요셉과 마리아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그가 예민하게 알게 된 것은 이 무렵이었다. 그는 부모들의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하여 매우 숙고하였고, 자기가 깊이 잠든 줄로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모들의 대화를 종종 들어보기도 하였다. 그는 점점 더 아버지의 관점을 따르게 되었고, 따라서 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일생을 통해 체험해야 할 문제들에 있어서 자신의 지시를 점점 더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현됨으로써 상처를 입을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해가 거듭될수록, 그들의 생각의 차이는 더 넓어졌다. 마리아는 예수의 사명의 의의(意義)에 대해 점점 더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훌륭한 이 어머니는 자기가 총애하는 아들이 자신의 맹신적인 기대들을 만족시켜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점점 더 상처를 입게 되었다.

124:4.6 (1372.3) 요셉은 예수의 사명의 영적 본질에 대해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다른 이유로 인하여, 불운하게도 그는 예수가 이 세상에 증여된 것에

대한 자신의 개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살아있지 못하였다.

124:4,7 (1372,4) 학교에 다니던 마지막 해에, 그가 열두 살이 되었을 때, 예수는 문설주에 못으로 박아 놓은 양피지 문서에 집안을 드나들 때마다 손끝을 대고 다시 그 손가락에 입을 맞추는 유대인의 관습에 대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항의하였다. 이러한 의식의 일부분으로서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가 드나드는 것을 이제로부터 그 언제까지라도 보호해 주시리라."라고 말하는 것이 관례였다. 요셉과 마리아는 전에 예수에게 아무것도 그리거나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수차례에 걸쳐 가르치면서, 그러한 작품들은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었다. 예수는 그들이 형상이나 그림을 만드는 것을 왜 금지시키는지 충분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는 모순되지 않는 하나의 높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자기 아버지에게 문설주의 양피지 문서에게 습관적으로 경의를 표하는 행위에도 근본적으로 우상숭배의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요셉은 예수의 이러한 항의를 받은 후에 문설주에서 그 양피지 문서를 제거하였다.

124:4.8 (1372.5)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수는 가족 공동 기도와 다른 여러 관례들과 같은 종교적인 형식들에 대한 실천 관행들을 많이 변화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일들은 그곳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회당이 나사렛의 유명한 선생 호세와 같은 자유주의적 학풍을 따르는 랍비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124:4.9 (1372.6) 이 해와 그 후 2년 동안 예수는 종교적인 실천 관행이나 사회적인 풍습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자기 부모의 이미 확립된 신앙과 조화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고자하는 충동과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양심으로부터의 경고가 대립됨으로 인하여 혼란되어 있었다; 그의 최극의 갈등은 그의 어린 마음속에 최우선으로 있던 위대한 두 개의 명령사이에 있었다. 하나는 "진실과 정의(義)에 대한 너의 최고 신념의 명령에 충성하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 후로는 길러주었으니, 그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무튼, 그는 자신의 인간의 신념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과

가족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매 순간마다 조절해야 하는 의무를 기피한 적이 결코 없었으며, 충성심과 공정성 그리고 인내심과 사랑에 바탕을 둔 집단적 일체감의 뛰어난 개념 속으로 개인적 신념과 가족에 대한 의무감을 더욱 조화롭게 융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족스러운 성취를 이루었다.

제 5 장. 13살 되던 해(서기 7년)

124:5.1 (1373.1) 이 해부터 나사렛의 그 소년은 소년기를 벗어나 청년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의 음성이 변하기 시작하였고, 몸과 마음의 다른 특징들도 곧 어른의 지위에 도달하려는 증거들을 나타나고 있었다.

124:5.2 (1373.2) 서기 7년 1월 9일 일요일 밤, 그의 남동생 아모스가 태어났다. 유다는 아직 2살이 안되었다, 여동생 룯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사고로 그 다음 해에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예수는 돌보아야 할 어린아이로 이루어진 꽤 큰 가족을 가져야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4:5.3 (1373.3) 2월 중순경에, 예수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람의 깨우침을 위하여 그리고 하느님의 계시를 위하여 사명을

수행하도록 운명되었다는 것을 인간으로서 확신하게 되었다. 장기적인 계획들과 함께 중대한 결정들이, 겉으로 볼 때 나사렛에 사는 보통의 유대인 소년으로 보이는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형성되고 있었다. 이제 청년기를 맞이한 이 목수의 아들의 생각과 행동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네바돈 전체의 모든 지능 생명체들은 넋을 잃고 경탄하면서 지켜보았다.

124:5.4 (1373.4) 서기 7년 3월 20일 그 주일의 첫날, 예수는 나사렛의 회당과 관계되어 있는 그 지역의 학교에서의 훈련 과정으로부터 졸업하였다. 야심을 가진 모든 유대인 가정의 일생에 있어서 이 날은 가슴 벅찬 날이었으며, 그 날은 바로 맏아들이 “계명의 아들”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님 하느님의 대속함을 받은 첫 아들, “지고자의 아이”로 그리고 모든 지상의 주님의 하인으로 선포되는 날이었다.

124:5.5 (1373.5) 지난 주 금요일에, 요셉은 이 기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건물을 짓고 있던 세포리로부터 돌아왔다. 예수를 가르친 선생은 주의 깊고 부지런한 자기 제자가 어떤 눈에 필만한 출세, 어떤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었다. 예수의

순응하지 않는 경향 때문에 발생하였던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이 소년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유명한 히브리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게 할 계획을 이미 세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124:5.6 (1373.6)} 이러한 계획이 토론되는 것을 때때로 들으면서,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랍비들과 공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을 점점 더 확고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조만간 발생하게 될 비극적인 사건을 꿈도 꾸지 못하였으며, 그것은 당장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5명의 남동생들과 3명의 여동생들로 구성된 대가족을 부양하고 이끌어 가는 책임을 자기가 맡아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계획은 포기되었을 것이 확실했다. 이 사건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 예수는 자기 아버지인 요셉에게 부과되었던 것보다 더 힘들고 긴 체험을 하였으며, 그는 자신이 나중에 스스로 부과한 기준 즉: 갑자기 슬픔이 몰아닥치고 예기치 않았던 죽음을 당하게 된 이 가족—자기 가족—에게 현명하고 참을성 있으며 납득함이 있고 효력적인 선생인 동시에 만아들이 되기에 적합하였다.

제 6 장.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124:6.1 (1374.1) 이제 막 청년기의 문턱에 이르렀고 회당 학교를 공식적으로 졸업한 예수는, 자기 부모와 함께 자신의 첫 번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분별화되었다. 이 해의 유월절 축제는 서기 7년 4월 9일, 토요일에 있었다. 여행에 동행할 많은 사람들(103)이 4월 4일 월요일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사렛을 떠날 준비를 완료하였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향하여 남쪽으로 여행하였지만, 예즈릴에 당도하였을 때 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동쪽으로 길을 바꾸어 길보아산을 돌아 요단 계곡으로 내려갔다.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야곱의 우물과 베델을 지나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웃들과 함께 요단 계곡으로 지나가는 길을 선택하였다.

124:6.2 (1374.2) 무척 두려웠던 아켈라우스가 이미 왕에서 물러났고, 그들은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헤롯 1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때로부터 12년이 지났으며,

그 당시의 일과 눈에 띄지 않는 이 나사렛의 아이를
연결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24:6.3 (1374.3) 예즈릴 교차로에 도달하기 전, 그들은 여행을
계속한 후 곧 왼편에 있는 고대의 마을 슈넴을 지나가게
되었으며, 예수는 이곳에 살았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처녀의 이야기와, 엘리사가 이곳에서
행하였던 놀라운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었다.
예즈릴을 지나면서 예수의 부모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착취자 예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길보아산을
지나갈 때에는 그들은 이 산의 언덕에서 죽은 사울 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다윗 왕과 기타 이 역사적 장소와
관계적-연합된 이야기들을 하였다.

124:6.4 (1374.4) 길보아산 밑을 돌아가면서 그 순례자들은
오른쪽에 있는 스키토폴리스라는 그리스 도시를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멀리서 이 이방인 도시의 대리석
건축물들을 바라보았고 가까이 가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 자신들을
더럽히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을 유월절 축제의
엄숙하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마리아는 요셉과 예수 둘 모두 스키토폴리스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었다. 지난해에 그들 사이에서 있었던 언쟁에 대해 그들이 전혀 이 에피소드를 내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124:6.5 (1374.5) 길은 이제 곧장 열대성 기후의 요단 계곡으로 향하였으며 예수는 사해로 흘러 내려가면서 반짝거리고 잔잔한 시냇물과 함께, 굽어져 있고 항상 바람이 부는 요단 지역을 곧 감탄하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열대 기후의 이 계곡을 따라 남쪽으로 여행할 때에는 겹옷을 벗었고, 북쪽으로 멀리 서있는 눈 덮인 장엄한 모습의 헤르몬 산이 역사적인 이 계곡을 위엄 있게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만발한 분홍색 꽃을 달고 있는 협죽도(夾竹桃) 나무들과 곡식이 맏힌 아름다운 들판을 보면서 즐거워하였다. 스키토폴리스 반대편으로부터 세 시간 남짓 여행을 한 후, 그들은 넘쳐흐르는 한 샘에 도착하였고, 별이 빛나는 하늘을 지붕 삼아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124:6.6 (1374.6)

여행을 시작한지 둘째 날, 그들은 압복강이 동쪽으로부터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역을 지나갔고, 강이 있는 이 계곡의 동쪽을 바라보면서 미디안-사람들이 이 지역을 침략하여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였던 기드온 시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둘째 날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그들은 요단강이 보이는 가장 높은 사르타바산 아래 부근에서 하루를 묵었으며, 이 산의 정상에는 알렉산드리아의 요새가 자리 잡고 있었고 헤롯이 그의 아내들 중에서 한 사람을 가두었던 곳이고 그가 목 졸라 죽인 두 아들이 매장된 곳이었다.

124:6.7 (1375.1)

셋째 날, 그들은 헤롯이 최근에 건설한 두 개의 마을을 지나갔으며, 그곳들의 우월한 고안건축물들과 그곳들의 아름다운 야자수 정원들을 볼 수 있었다. 밤이 될 무렵에 그들은 여리고에 도착하였고, 다음 날까지 그곳에서 머물렀다. 그 날 저녁,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는 1마일 반을 걸어가서 고대의 여리고 지역에 도착하였으며, 그곳은 유대의 전통에 따라 예수라는 이름을 따온 여호수아가 유명한 업적을 이룩한 장소였다.

124:6.8 (1375.2)

여행을 떠난 지 넷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이어지는 순례자들의 행렬로 길이 가득 채워졌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꼭대기에 다가가면서 그들은 산들이 있는 너머로 요단 지역을 볼 수 있었고 남쪽으로는 잔잔한 사해의 물을 볼 수 있었다. 예루살렘에 반쯤 왔을 때, 예수는 올리브 산(그의 후반부 일생의 많은 부분을 보내게 될 지역)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으며, 요셉은 그에게 바로 그 산마루 너머에 거룩한 성(城)이 있다고 알려 주었고, 하늘에 계신 자기 아버지의 성과 집을 곧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기대감 때문에 그 소년의 가슴은 더욱 빨리 뛰고 있었다.

124:6.9 (1375.3)

올리브 산의 동쪽 비탈에 있는 베다니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 입구에서 그들은 휴식을 취하였다. 호의적인 마을 사람들이 순례자들에게 사명활동하기 위하여 몰려 나왔으며, 여기에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는 가까운 곳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 집에는 예수와 비슷한 또래의 세 아이—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있었다. 그들은 나사렛의 가족을 쉬어갈 수 있도록 초대하였고, 여기에서 이 두 가족 간에는 일생동안

계속되는 우정이 싹트게 되었다. 그 후, 예수는 자신의 사건 많은 일생 동안에, 이 집에 여러 차례 머물렀다.

124:6.10 (1375.4) 그들은 길을 재촉하여 잠시 후 올리브 산의 경계선에 도착하였고, 예수는 (그의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거룩한 성과 거만하게 서 있는 저택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웅장한 성전을 보았다. 예수는 그의 일생 동안에, 4월이었던 이 날 오후에 올리브 산 위에 서서 예루살렘을 처음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토록 완벽하게 그를 매혹시킨, 그러한 순전히 인간의 감격을 전에는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 후에 예수는 같은 지점에 서서, 또 하나의 예언자, 하늘에서 보낸 선생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최종적인 그 선생을 거부하려는 이 도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124:6.11 (1375.5) 그러나 그들은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제 목요일 오후가 되었다. 도시에 도착하자, 그들은 성전을 지나갔으며, 예수는 이처럼 많은 군중들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어떻게 이러한 유대인들이 이름 있는 세계 도처에서 이곳으로 몰려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124:6.12 (1375.6) 이윽고 그들은 유월절 주간에 머물기로 이미 약정된 곳에 도착하였으며, 이 큰 집은 마리아의 부유한

친족집이었고, 사가리아를 통하여 요한과 예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에 대해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은 예비일이었는데, 그들은 유월절 안식일을 기념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124:6.13 (1375.7) 모든 예루살렘이 유월절 준비로 떠들썩하는 동안, 요셉은 틈을 내어 예수를 데리고, 2년 후에 예수가 요구되는 나이인 15세가 되면, 그의 교육을 다시 시작하도록 그를 위해 이미 주선이 되어 있었던 학원을 방문하였다. 요셉은, 주의 깊게 마련된 이들 모든 계획에 대하여, 예수가 전혀 흥미를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을 관찰하면서 참으로 어리둥절했다.

124:6.14 (1375.8) 예수는 성전과 모든 연관된 봉사들 그리고 다른 활동들로 인하여 심오하게 감명을 받았다. 4살이 된 이후로는 처음으로, 그는 자신만의 명상에 너무나 몰두되어서, 많은 질문을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왜 하늘 아버지가 것처럼 많은 죄 없고 어떤 도움도 없는 동물들을 도살하도록 요구했는지에 대하여, (전에도 여러 차례 했던 것처럼) 난처하게 만드는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대답과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깊이-생각하면서 그리고 예리하게-
추론하는 자기 아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년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으로 잘 알았다.

124:6.15 (1376.1) 유월절 안식일 전 날에, 영적 광채의 홍수와 같은
물결이 예수의 필사자 마음을 휩쓸고 지나갔고, 그리고
그의 인간 가슴을 옛적부터 내려온 유월절 기념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모여있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과
도덕적으로 무지한 대중들에 대한, 애정 깊은 동정심으로
넘쳐 흐르도록 채웠다. 이 날은 하느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보낸 가장 비상한 날들 중의 하나였다; 그 날 밤, 그의
땅에서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임마누엘에 의해서 임명
받고, 구원자별에서 배정 받은 메신저가 그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때가 왔습니다. 이제 비로소
당신이 당신 아버지의 일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124:6.16 (1376.2) 그리하여, 심지어 나사렛의 가족을 돌보는
무거운 책임이 그의 나이 어린 어깨에 내려지기도 전에,
아직 정확하게 열세 살이 채 안 된 이 소년에게, 우주의
책임을 재개하는 것을 시작할 때가 왔다고 상기시키려고,
천상의 메신저가 도착한 것이다. 이것은, 아들의 증여를

유란시아 위에서 완성함으로써 그리고 “인간적이고-
신성한 그의 어깨 위에 우주의 정부”를 되돌리는, 여러
사건으로 이루어진 긴 하나의 연속물에서의 첫 번째
활동이었다.

124:6.17 (1376.3) 시간이 지나면서 육신화의 신비는 우리 모두에게
점점 더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이 나사렛의 소년이
네바돈의 창조자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나아가 우리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어떻게 하여 바로 이
창조자 아들의 영과 그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영이
인류의 혼들과 연관되고 있는지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의 인간 마음은, 한편으로는 그가
그의 육신으로 일생을 살게 되었지만, 영으로는 그의 어깨
위에 한 우주의 책임이 놓여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124:6.18 (1376.4) 이렇게 하여 나사렛 소년에서의 생애는 끝나고,
그리고 청년기에 들어간 그 젊은이—점점 더 자아-의식적
신성한 인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그는 그의
부모의 욕망, 그리고 그의 가족에 대한 그리고 그의 날과
시대에서의 사회에 대한 의무를, 확대되고 있는 그의

일생의 목적과 집대성하려고 애쓰면서, 자신의 세상 생애에 대한 깊은 사색을 시작하였다.

제 125 편 예루살렘에서의 예수

125:0.1 (1377.1) 예수가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어떤 경우도, 이 예루살렘 첫 방문만큼 그를 사로잡고 감동스럽게 한 것은 없었다. 그는 특히 자신이 직접 성전에서의 토론에 참여 할 수 있었던 체험 때문에 매우 흥분되어 있었으며, 이 기억은 그 이후 오랫동안 후반기 소년 시절과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큰 사건으로 그의 가슴속에 간직되었다. 이 때 그는 처음으로 며칠 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맛볼 수 있는 기회, 어떠한 제재나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드나드는 유쾌한 체험을 하였다. 짧은 기간이기는 하였지만, 그는 유월절 이후 1주일 동안 모든 의무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자유로운 생활을 처음으로 가졌던 것이다. 그 후로, 짧게나마 그가 모든 책임감에서 벗어나 이와 비슷한 자유를 다시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 해가 지난 후였다.

125:0.2 (1377.2) 여인들은 예루살렘의 유월절 축제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는 그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어머니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기도 가지 않겠다고 실질적으로 거절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동행하기로 결심하자, 여러 명의 다른 나사렛 여인들도 함께 따라 나섰으며, 따라서 지금까지 나사렛에서 유월절에 올라갔던 무리들 중에서 남자와 여자의 비례로 볼 때 여인들의 비율이 이번 유월절처럼 높았던 적이 없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때때로 시편 130편을 노래하며 갔다.

125:0.3 (1377.3) 그들이 나사렛을 떠날 때부터 올리브 산 정상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는 굉장한 기대로 줄곧 긴장되는 체험을 하였다. 즐거웠던 어린 시절 동안 내내, 그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들에 관한 이야기를 존경이 담긴 가슴으로 들어 왔었는데; 이제는 곧 그것들을 실체 안에서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가 올리브 산으로부터 그리고 성전 밖으로부터 그것을 점점 더 가까이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성전은 예수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지만; 그러나 신성시되는 입구를 통하여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그에게는 커다란 혐오감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25:0.4 (1377.4) 자기 부모와 함께 성전의 경내를 지나간 예수는 혼자 떨어져서, 이제 곧 이스라엘의 시민으로 헌납될 새로운 율법의 아들들의 집단과 합류하였다. 그는 성전에 들어온 군중들의 일반적인 태도에 약간 실망을 하였지만, 그 날 그가 받은 첫 번째 큰 충격은 어머니가 일행을 떠나 여인들의 처소로 갔을 때였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헌납 예식에 함께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생각에 떠오른 적이 없었으며, 게다가 어머니가 그러한 불공평한 차별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분개하였다. 그는 이 일로 몹시 화가 나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몇 마디의 불만을 표시하는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으며, 1주일 후에 행사가 끝났을 때 서기관들과 선생들에게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

125:0.5 (1377.5) 그는 헌납 예식들의 과정을 잘 견디어 냈지만, 그것들의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특성에 대하여 실망하였다. 그는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의 예식의 특징인 개인적 관계가 몹시 생각났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아버지와 함께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다양한 뜰들과 방들 그리고 복도들을 처음으로

돌아보았다. 성전의 경내는 한번에 20만 명 정도의 경배자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었으며, 이 건물들의 광대함—그가 전에 보았던 모든 건물과 비교해 볼 때—은 그의 마음에 큰 감명을 주었지만, 그는 성전의 예식들과 거기에 연관된 경배의 영적 의의(意義)에 대해 깊은 사색하는 일에 더욱 열중하였다.

125:0.6 (1378.1) 성전의 의식들 대부분이 그의 심미적이고 상징적인 감각에 매우 감동적인 인상을 주기는 하였지만, 그가 날카롭게 던지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하여 대답하기 위해 그의 부모가 제시하고자 하였던, 이러한 의식들의 실제적인 의미에 대한 설명에 그는 늘 실망하였다. 예수는 진노의 하느님 또는 전능자의 노여움에 대한 믿음이 내포된 이러한 경배와 종교적인 헌신에 대한 설명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성전 방문이 끝난 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토론하는 중에, 예수의 아버지가 그에게 유대인의 전통적인 믿음을 받아들이라고 완곡하게 타일렀을 때, 예수는 갑자기 자기 부모들에게 돌아서서 호소하는 듯이 아버지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이 세상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대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아버지가 저를 더 사랑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쩌다 어리석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저에게 분노하시거나 화를 내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신성한 것에 대한 인간 반영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얼마나 더 선하시며 자비가 흘러넘치시겠습니까?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세상의 아버지보다 나를 덜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125:0.7 (1378.2)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맏아들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그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에 관한 그의 마음을 바꾸어 보려고 다시 시도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제 1 장. 성전을 구경하는 예수

125:1.1 (1378.3) 예수는 성전에 있는 여러 뜰을 하나씩 둘러볼 때마다, 자신이 목격한 불경스러움의 영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고 진저리가 났다. 그에게는, 성전 안에 있는 군중들의 행위가 “그의 아버지의 집”안에서의 그들의 현존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이방인들의 뜰로 안내하였을 때, 그는 서로 제사용 동물과 기타 일상의 상품들의 배반되어 현존하는 그곳이, 시끄러운 속어, 큰 소리의 떠들고 욕하는 소리, 그리고 양들의 울음소리와 환전상들과 판매상들의 왁자지껄한 소음의 허튼소리들이 난잡하게 뒤섞여 있는 것에, 그의 어린 일생에서의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125:1.2 (1378.4) 그러나 최근에 세포리를 방문하였을 때 그가 본 적이 있는 화장을 한 여인들과 흡사한, 천박한 매춘부들이 성전 경내를 활보하고 있는 광경으로 인하여 격분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타당성에 대한 감각이었다.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생각은 젊은이로서의 그의 분개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으며, 자신이 느낀 그대로를 주저하지 않고 요셉에게 이야기하였다.

125:1.3 (1378.5) 예수는 성전의 정서와 예배봉사에는 감탄하였지만, 무의미하게 경배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 나타나 있는 영적으로 추한 모습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125:1.4 (1378.6) 그 다음에 그들은 성전 앞의 돌난간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의 뜰로 내려갔으며, 그곳에는 제단이 있었고, 동물들을 죽이는 장면과 제사를 집행한 도살자 제사장들이 청동으로 만든 그릇 앞에서 피 묻은 손을 씻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피로 얼룩진 도로와 제사장의 피비린내 나는 손 그리고 죽어 가는 동물들의 신음소리는, 자연을 사랑하는 이 소년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러한 흉측한 광경은 이 나사렛 소년의 비위를 상하게 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팔에 매달리면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들은 다시 이방인들의 뜰을 지나가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들려오는 조잡한 웃음소리나 천박한 농담이 방금 전에 보았던 광경으로부터 기분을 전환시켜주었다.

125:1.5 (1379.1) 요셉은 자기 아들이 성전의 의식들을 보면서 얼마나 진저리를 쳤었는지를 보았으므로, 그는 지혜를 짜내서 예수를 고린도식 청동으로 예술적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문”으로 안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첫

번째 성전 방문으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 성전 위쪽으로 올라갔으며 군중들로부터 벗어나 바깥으로 나와서, 헤롯이 살았던 웅장한 모습의 아스모니아 궁전과 로마 경비병들의 탑을 보면서 한 시간 가량 걸었다. 산책을 하는 동안 요셉은 예수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매일 성전에서 치르는 희생을 볼 수 있도록 허락된다는 것과,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일 년에 세 번 즉: 유월절, 오순절(유월절 7주 후), 그리고 10월의 천막축제 축제의 경우에만 성전 경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이러한 축제들은 모세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나중에 만들어진 두 개의 축제들, 봉헌식과 부림 축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숙소로 돌아가서 유월절을 축하할 준비를 하였다.

제 2 장. 예수와 유월절

125:2.1 (1379.2) 나사렛에서 온 다섯 가정들은, 축제를 위한 유월절 어린양을 이미 구입해 놓았던, 베다니에 사는 시몬 가족의 손님으로 또는 친구로 초대되어 유월절을 그들과 함께 지냈다. 예수가 성전을 방문하였을 때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은 바로 그토록 많은 어린양들의 살생이었다. 원래는 마리아의 친척집에서 유월절을 지낼 예정이었으나, 예수는 그들이 베다니로의 초대에 응하도록 부모를 설득하였다.

125:2.2 (1379.3) 그날 밤에 그들은 유월절 의식을 치르기 위해 함께 모였으며, 구운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었다. 이번에 새롭게 계명의 아들이 된 예수는 유월절의 유래를 설명하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는 이것에 대해 답변을 잘하였으나, 어리기는 하지만 사려 깊은 그의 마음속에 아주 최근에 보고 들은 것들로 인하여 느꼈던 것들을 조심스럽게 돌이켜보면서 수많은 의견들을 제시함으로써 자기 부모를 좀 당황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7일간의 유월절 축제의식이 시작되었다.

125:2.3 (1379.4) 아직 시작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에 대해 부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는 양을 죽이지 않고도 유월절을 축하할 수 있다는 쪽으로 그의 생각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이러한 희생물을 제공하는 장면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마음속에 갖게 되었고, 해가

갈수록, 언젠가는 피 흘림이 없는 유월절 축하 의식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하였다.

125:2.4 (1379.5) 예수는 그 날 밤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는 살육과 고통에 대한 불쾌한 꿈 때문에 편안하게 잠수가 없었다. 전반적인 유대인의 의식 체제에 대한 유대 신학의 모순과 어리석음들로 인해 그의 마음은 산란해지고 가슴은 찢어지듯 아팠다. 그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잠을 설쳤다. 그들은 방금 끝난 그 날 있었던 사건들 때문에 크게 당황하고 있었다. 그 소년의 태도가 그들에게는 이상하고도 고집스러운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가슴은 완벽하게 낭패스러운 느낌을 가졌던 것이다. 그 날 밤 초반기에 마리아는 신경이 매우 곤두서있었지만, 요셉은 마찬가지로 당황하기는 하였으나 침착함을 유지하였다. 예수는 부모가 용기 있게 자기를 격려해 주었더라면, 기꺼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들 둘 모두 이런 문제들에 대해 예수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125:2.5 (1379.6) 예수는 그 다음 날 성전에서 있었던 예배봉사들에서는 좀 더 나은 인상을 받았고, 전 날에

느꼈던 불쾌한 기억은 많이 완화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젊은 나사로가 예수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체계적으로 구경시켜 주었다. 그 날 해가 지기 전에, 예수는 성전 주변에 있는 여러 장소에서 가르치고 질문을 하는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성소를 몇 차례 방문하여 베일로 격리된 그 뒤에는 실제로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 하며 바라본 것 외에는, 가르치는 이 토론들이 진행되는 성전 주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125:2.6 (1380.1) 유월절 주간 동안 내내 예수는 새로 임명된 계명의 아들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 시민이 아닌 사람들도 섞여 있는 전체적인 사회와 구별시키는 울타리 밖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자기가 아직은 어린 나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는 마음속에 요동치는 많은 의문점들을 질문하는 것을 자제하였다; 그는 적어도 유월절의 축제가 끝나고 그래서 새롭게 헌납된 그 소년들에 대한 이러한 제재가 풀릴 때까지는 그렇게 하였다.

125:2.7 (1380.2) 유월절 주간의 수요일에, 예수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그와 함께 그 날 밤을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 날 밤,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해 그리고
인간과 신성한 것에 대해 논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 날
밤 이후 이 세 사람은 자기들의 진짜 형제처럼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다.

125:2.8 (1380.3) 그 주간이 끝날 때까지, 그는 나사로를 자주
만나지 못하였는데, 왜냐하면 나사로는 바깥 마당에서
행해지는 여러 대중을 위한 대화에는 참여한 적이 있기는
하였지만, 성전 토론은 먼발치에서라도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사로도
예수와 같은 나이였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소년들은
그들이 충분히 13세가 되기 전에는 계명의
아들들로서의 임명식에 거의 아무도 참여할 수가 없었다.

125:2.9 (1380.4) 유월절 주간 동안, 예수의 부모는 그가 두 손으로
머리를 싸매고 혼자 따로 앉아서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것을 계속하여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의 이러한
행동을 그 전에는 본 적이 없었으며, 자신이 겪고 있는
체험들로 인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혼란되어
있고 영적으로 불안하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무척 당황하였다;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들은 다만 유월절 주간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으며 이상하게 행동하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빨리 나사렛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하였다.

125:2.10 (1380.5) 날이 갈수록, 예수는 자신의 문제들에 관하여 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주말이 왔을 때쯤에는 많은 것들을 정리하게 되었지만; 나사렛으로 가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소년의 마음은 대답을 얻지 못한 질문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 여전히 혼란의 늪 속에 빠져 있었다.

125:2.11 (1380.6)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15세가 되면 다시 돌아와 가장 저명한 랍비 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나사렛에서 예수를 가르친 선생과 함께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두었다. 예수는 자기 부모와 그 선생과 함께 학교를 방문하였지만, 그들 모두는 자기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대해 예수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걱정하였다. 마리아는 예루살렘 방문에 대한 예수의 반응 때문에 깊이 감정이

상하였고, 요셉은 그 소년의 이상스러운 의견들과 평소와는 다른 행위 때문에 몹시 당황하고 있었다.

125:2.12 (1380.7) 결국, 유월절 주간은 예수의 일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는 헌납식에 후보자로 왔던 자기 나이 또래의 많은 소년들과 만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가졌으며, 이러한 만남을 통하여 메소포타미아나 투르키스탄 그리고 파르티아뿐만 아니라 로마의 극서(極西) 지방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그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근방에 있는 다른 지역의 소년들이 어떤 식으로 자라나는 지에 대하여는 이미 꽤 알고 있는 터였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머물고 있었고, 이 나사렛 소년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소는 광범위하게 대담 형식으로 150명이 넘는 소년들과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특히 극동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서방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이러한 만남들의 결과로 이 소년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하여 어떻게 수고하며 살아가는 지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

제 3 장. 요셉과 마리아의 출발

125:3.1 (1381.1) 유월절 축제가 끝난 다음 주간의 첫 날 오전 중에, 나사렛 사람들은 성전 지역에서 함께 모이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 그들은 약속대로 모였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시작하였다. 예수는 자기 부모들이 같이 돌아갈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토론을 듣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모인 사람들은 떠날 준비를 하였고, 예루살렘의 축제에 참가하기 위하여 오고 갈 때의 그들의 관례대로 남자들과 여자들은 각각 따로 집단을 지어 걸어갔다.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는 자기 어머니와 여인들의 집단과 함께 행동하였었다. 이제는 어른으로 헌납되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와 다른 남자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이 베다니를 향해 떠나고 있을 때, 예수는 성전 안에서 천사들에 대한 토론에 완벽하게 빠져 있었으므로 부모들이 떠날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것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정오가 되어 토론 모임이 산회될 때까지도, 자기 혼자만이 그곳에 남아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125:3.2 (1381.2) 나사렛 여행객들은 예수를 찾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가 남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요셉은 예수가 마리아의 당나귀를 끌고
여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가 여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여리고에 도착하여 그 날 밤을
그곳에서 지내려고 준비할 때에서야, 그가 같이 오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여리고에 가장 늦게 도착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예수를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고, 잠을 잘 수가 없었으며, 유월절 주간 동안 보인
예수의 이상한 행동들을 떠올리면서 혹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 난 것이나 아닌가 하여 걱정을 하였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기 전에 예수가 있는지를 살피지
않았던 것에 대해 서로 상대방에게 은근히 원망하였다.

제 4 장. 성전에서의 첫째 날과 둘째 날

125:4.1 (1381.3) 한편, 예수는 그 날 오후 내내 성전에
남아있으면서 토론들을 들었고, 유월절의 많은 군중들이
거의 떠난 이후의 좀 더 조용하고 정숙한 그곳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예수는 한 번도 토론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오후의 토론들이 끝나자, 그는 혼자서 베다니로
갔으며, 시몬의 가족들은 그 때 막 저녁식사를 하려던
참이었다. 세 명의 아이들은 예수를 반갑게 맞이하였고,

그는 그날 밤 시몬의 집에서 지냈다. 그 날 밤에 그는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정원에서 혼자 명상을 하면서 보냈다.

^{125:4.2 (1381.4)} 다음 날 예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성전으로 길을 떠났다. 올리브 산 정상에서 그는 잠깐 멈추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전통에 얽매이고 로마 집단의 감시를 받으면서 사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오전 일찍 성전에 도착한 그는 그 토론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한편, 요셉과 마리아도 새벽 일찍 일어나 예수를 찾아 지나온 길을 되짚어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길을 떠났다. 우선 그들은 유월절 기간 중에 함께 머물렀던 친척들의 집으로 서둘러 갔고,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만 듣게 되었다. 하루 종일 그를 찾았으나 그의 행적을 찾지 못한 채 그들은 잠을 자기 위하여 친척집으로 돌아갔다.

^{125:4.3 (1382.1)} 두 번째 회의가 있을 때, 예수는 용감하게 질문들을 했고, 매우 놀라운 방법으로 성전에서의 토론에 참여하였지만, 언제나 소년다운 태도로 겸손하게 토론에 임하였다. 때때로 그의 날카로운 질문은 유대의 율법을

가르치는 학식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당황하게 하였지만, 그로부터 솔직한 공평성의 마음과 지식을 추구하려는 명백한 태도가 보였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대부분의 선생들은 그를 잘 봐주고 싶어 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술 취한 한 이방인이 이방인의 구역 근처를 배회하다가 무의식적으로 신성한 곳으로 간주되는 성전 안의 금지된 구역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그를 사형에 처하는 것에 대한 공의(公義)에 대해 그가 의문을 제기하였을 때, 보다 편협한 선생들 중 하나가 이 소년의 간접적인 비난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인상을 찡그리고 그를 내려다보면서 몇 살이냐고 물었다. 예수는 "13세에서 4개월 조금 더 모자랍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제 아주 화가 난 그 선생이 다시 다음과 같이 물었다: "그렇다면, 너는 아직 율법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는데 어찌하여 여기 들어왔느냐?" 그런데 예수가 자신이 유월절 기간 중에 헌납이 받아들여졌으며, 나사렛 학교에서 그의 공부를 완결하였다고 설명을 하자, 선생들이 하나같이 조롱하며, "우리가 미리 알아보았어야 하는 건데 그랬군. 저 아이가 나사렛에서 왔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집회 영도자가, 나사렛에 있는 회당의 통치자들이 13세가 아닌

12세에 그를 합법적으로 졸업시켰다면, 예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를 험담하던 몇몇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은 성전 토론에서 학생의 자격으로 방해받지 않고 계속하여 참여해도 좋다는 공식적인 허락을 받았다.

125:4.4 (1382.2) 이렇게 하여, 그의 성전에서의 둘째 날이 완결되었을 때, 그는 다시 베다니로 가서 그 날 밤을 지냈다. 그 날도 그는 명상과 기도를 하기 위해 다시 정원으로 나왔다. 그가 마음속으로 중대한 문제들에 관하여 깊은 사색하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제 5 장. 성전에서의 셋째 날

125:5.1 (1382.3) 예수가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선생들과 함께 있었던 셋째 날, 갈릴리에서 온 소년에 대한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을 혼란시켰다는 한 소년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시몬 역시 예수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보려고 베다니로부터 왔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날도 하루 종일 열심히 예수를 찾아 다녔으며, 성전에도 몇 번씩이나 왔었고, 그 중에 한 번은 그의 매혹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까지 거의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토론모임들 중에서 그를 찾아 볼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다.

125:5.2 (1382.4) 그날이 끝날 무렵 즈음에는 성전의 중요한 토론
모임의 모든 관심은 예수의 질문들에게로 집중되었다.
그의 많은 질문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125:5.3 (1382.5) 1. 성전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至聖所)에는
실제로 무엇이 존재하는가?

125:5.4 (1382.6) 2.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왜 성전에서 경배
드리는 남자들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가?

125:5.5 (1382.7) 3. 만약 하느님이 자기 자손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으시다면, 신성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왜
동물들을 이렇게 죽여야 하며—이것은 혹시 모세의
가르침들이 잘못 해석되어진 것은 아닌가?

125:5.6 (1382.8) 4.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
성전이 바쳐진 것인데, 세속적인 거래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현존을 허락하는 것은 바른 일인가?

125:5.7 (1382.9)

5.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보좌에
임시로 앉으실 영주인가? 아니면, 영적 왕국을 세우심에
있어서 생명의 빛으로서 활동하실 분인가?

125:5.8 (1383.1)

하루 종일 거기에 있던 사람들 모두는 이러한
질문들에 경이를 금치 못했지만, 시몬보다 더 놀란 사람은
없었다. 네 시간이 넘도록, 이 나사렛 소년은 유대
선생들에게, 생각을-자극하고 가슴을-탐구하는 질문들을
퍼부었다. 그는 장로들의 견해들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묻고자 하는 질문들을
통하여 자신의 가르침을 전달하였던 것이다. 그는
능숙하고 미묘하게 질문들을 구사함으로써 한 번에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가르침에 도전을 주었고 자기
자신의 가르침을 제시하였다. 그가 질문을 하는 방식에는
총명성과 유머가 매혹적으로 어우러져 있었으므로, 그가
어리다는 이유로 다소 화를 냈던 사람들까지도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예리한 질문들을 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하고 사려가 깊었다. 성전에서 있었던 이
중대한 오후에, 그는 반대자를 교활하게 역이용하는 것을
싫어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것은 뒤이어 일어났던 그의
대중을 위한 사명활동 전체 기간의 특성이기도 하였다.

젊어서나 그리고 후에 어른이 되어서나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에서 논리적인 승리를 즐기고 싶어 하는 자기본위적인 욕망이 전혀 없었으며, 단지 한 가지 일념 즉: 영속하는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영원한 하느님에 대한 더욱 충분한 계시에만 깊은 관심을 두었다.

125:5.9 (1383.2) 날이 저물자, 시몬과 예수는 함께 베다니로 돌아왔다. 길을 가는 동안 이 소년과 어른은 둘 모두 거의 말이 없었다. 다시 한 번 예수는 올리브산 언덕에 멈추어서 그 성과 성전을 바라보았으나,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다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기도를 하였다.

125:5.10 (1383.3) 베다니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그는 흥에 겨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다시 정원으로 나갔으며, 그는 밤이 깊을 때까지 그곳에 남아 있었고, 자신의 삶에서의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어떤 확고한 계획을 생각하기 위해, 그리고 영적으로 눈먼 이 사람들에게 좀 더 아름다운 하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율법과 형식과 의식 그리고 진부한 전통의 끔찍한 사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공허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진리를 탐구하던 이 소년은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하였다.

제 6 장. 성전에서의 넷째 날

^{125:6.1 (1383.4)} 예수는 이상하리만큼 육신의 부모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나사로의 어머니가 그의 부모들이 이때쯤이면 아마 집에 도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도, 예수는 그들이 자기를 뒤에 남겨 두고 온 것에 대해 걱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듯하였다.

^{125:6.2 (1383.5)} 그는 다시 성전으로 갔지만, 이번에는 묵상하기 위해 올리브 산기슭에서 멈추지 않았다. 오전에 진행된 토론 과정 중에서 대부분의 시간이 율법과 예언자들에 대한 토론에 할애되었으며, 그 선생들은 예수가 그리스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성서까지도 매우 잘 알고 있는 것에 놀랐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나이에 비해서 그가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125:6.3 (1383.6)} 예수가 질문한 기도의 목적에 관해 그들이 거의 대답을 시작할 수 없었던 그 날 오후의 토론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그로 하여금 앞으로 나오게 하여 자신의 옆에 앉히고 기도와 경배에 관한 그의 의견을 말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125:6.4 (1383.7) 그 날 저녁이 되기 전에, 예수의 부모는 율법 해석에 있어서 능숙하게 논쟁하고 있다는 이 이상한 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 소년이 바로 자기 아들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가 엘리자벳과 요한을 만나러 사가리아의 집으로 갔을 지도 모른다고 짐작하고 그쪽으로 가보기로 결정하였다. 사가리아가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유다의 도시로 가는 도중에 그곳에 들렸다. 그들은 성전에 있는 뜰들을 지나가다가, 자기들이 찾고 있는 아이의 음성을 들었고 게다가 그가 성전의 선생들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경탄했는지 상상하여 보라.

125:6.5 (1384.1) 요셉은 말문이 막혔고, 마리아는 오랫동안 품었던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면서, 그 소년에게로 달려갔고, 그제야 놀라고 있는 부모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서 있는 그에게, "아들아, 네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너의 아버지와 나는 지금까지 삼 일이나 넘게 상심하며 너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너를 우리에게서 떠나도록 사로잡았느냐?”라고 말하였다. 긴장된 순간이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대답을 기다리며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책망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25:6.6 (1384.2) **예수가 이제 성년이 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는 이제 소년으로의 정상적인 학교 과정을 이미 완결한 상태였고, 율법의 아들로 인정되었고, 게다가 이스라엘의 시민으로 헌납을 받아들였었다. 그런데도 그의 어머니는, 그가 가장 진지하고 숭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로 그 청년기 삶의 한 가운데에 있을 때,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느 정도 신랄하게 꾸지람을 함으로써, 그가 진리의 선생으로서, 정의의 설교자로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사랑가득한 성격의 아버지의 증거자로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들 중의 하나가 그렇게 하여 불명예스럽게 끝나도록 하였던 것이다.

125:6.7 (1384.3) 그러나 그 소년은 이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조장하게 하였던 모든 요인들을 너희가 공정하게 고려해 본다면, 그의 어머니의 즉흥적인 꾸지람에 대해 그 소년이 얼마나 현명한 대답을 하였었는지 너희가 보다 더 잘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순간적인 생각 이후에 예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를 찾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셨나요? 이제 내 아버지의 일을 할 때가 이르렀으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셨단 말입니까?”

125:6.8 (1384.4)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는 예수의 태도에

깜짝 놀랐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가버렸고, 예수는 자기 부모와 홀로 남게 되었다. 이윽고 그 젊은이는 세 사람의 난처했던 상황이 사라지자, 조용하게 말했다: “가시지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모두 각자 최선책이라고 생각한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준비하셨던 일들입니다. 이제 집으로 떠나시지요.”

125:6.9 (1384.5) 그들은 말없이 길을 재촉하여 그날 밤으로

여리고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올리브 산기슭에서 한 번

멈추었을 뿐이며, 그 때 그는 밀려오는 격렬한 감정으로 자기 지팡이를 높이 들어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흔들며 말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는 노예—로마의 멍에에 종속되고 너희들 자신의 전통의 희생자인—가 되었지만, 나는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 저 성전을 청결케 하고 이 속박에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125:6.10 (1384.6)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3일 동안 예수는 거의 말이 없었다; 그의 부모도 그의 현존 앞에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말로 만아들의 행위를 납득할 수가 없었지만, 그가 하는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였다.

125:6.11 (1384.7) 집으로 돌아온 후, 예수는 그의 부모에게 대한 그의 애정을 확신시켰고,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걱정을 끼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뜻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였다. 그는 짙막한 그 말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동시에, 이 세상에서의

아버지에게도 또한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125:6.12 (1384.8) 예수는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이나, 그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거나 혹은 땅에서의 그의 계획을 정해 주려는, 의도는 좋지만 잘못되어진 그의 부모의 노력들에 동의하기를 거절하곤 하였지만,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변함없이 전념하면서, 이 세상의 아버지의 뜻에 매우 암전하게 따랐고 육신적인 가족들의 관습에도 아무 불평 없이 따라 주었다. 그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는 그것을 따르려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는 가족에 충실하고 사회봉사에 대한 책임수행에 자신의 전념을 조절하는 문제에서 말하자면 대가였다.

125:6.13 (1385.1) 요셉은 혼란에 빠졌으나 마리아는, 올리브 산 위에서 예수가 메시아적인 사명에 관한 예언을 했던, 그러한 체험들을 회상하면서 그의 아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되리라는 생각에 위안을 받았다. 새로운 힘을 얻은 그녀는 애국적이고 민족적인 방향으로 그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이러한 노력에 예수가

가장 좋아하는 삼촌인 그의 오빠를 끌어 들였으며; 예수의 어머니는 자신의 맏아들이 다윗의 왕좌를 회복하고 이방인에 의한 정치적 속박의 멍에를 언제까지나 없애줄 영도자관계가 되는 것을 준비하는 일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헌신하였다.

제 126 편 혹독한 2 년

126:0.1 (1386.1) 예수가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체험 중에서, 14살과 15살 때 가장 혹독한 시련을 맞이하였다. 자신의 신성과 운명에 대해 이미 자아-의식적으로 되기 시작한 이후, 그리고 내주하는 조절자와는 아직 많은 교통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이 두 해 기간은 그의 사건 많은 유란시아에서의 일생 중에서 가장 쓰라린 시절이었다. 이 2년 동안의 기간은 가장 큰 시험, 실제적인 유혹을 받은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면서, 초기의 혼란과 청년기의 문제들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어떤 젊은 청년도 예수만큼 힘겨운 시험을 겪은 사람은 없었다.

126:0.2 (1386.2) 예수가 청년기의 발전을 이룩한 중요한 이 기간은,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다시 찾게 된 것에 대해, 예수가 충성된 아들이 되어—한 번도 그렇지 않았던 적이 없었지만—집에 돌아왔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그의 일생에 대해 어머니가 세운 계획에, 그가 지금부터는 더욱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행복해 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물질적인 망상과 은근한 가족적 자부심은 오래지 않아서 빛이 바래게 되었다; 얼마 가지 못하여 그녀는 더욱 완벽하게 환상에서 깨어났다. 그 소년은 점점 더 아버지와 시간을 많이 보냈고, 자기 문제들을 어머니와 상의하는 일은 점점 더 줄어들었으며, 그러는 동안에 그의 부모들은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일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깊은 사색하는 일과 이 세상의 관련사들 사이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점점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졌다. 솔직히 말해서, 그의 부모는 예수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126:0.3 (1386.3)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대 사람들에 대한 예수의 연민의정과 사랑이 더욱 깊어갔지만, 정치적으로 임명된 제사장들이 아버지의 성전에 현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개심은 세월이 감에 따라 더 깊어졌다. 예수는 진지한

바리새인들과 정직한 서기관들을 매우 존중하였으나,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나 정직하지 못한 신학자들은 심히 혐오하였다; 진실하지 못한 모든 종교적 영도자들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관계를 세밀히 관찰한 후에는,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될 수도 있다는 쪽으로 그가 유혹을 받은 때도 더러 있었지만, 그러한 유혹에 넘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126:0.4 (1386.4)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현자들 사이에서 이론 그의 공훈에 대한 이야기는 나사렛 사람들을 매우 우쭐하게 했으며, 특히 그를 가르쳤던 회당 학교 선생들에게는 더 할 나위가 없었다. 한동안 모든 사람들 입에서 그의 칭찬이 자자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지혜와 칭찬받을 만한 그의 행위들에 대해 호의를 가졌고, 장차 그가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영도자가 되도록 운명되었다; 드디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도 실제로 위대한 선생이 나오게 되었다고 내다보았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예수가 15세가 되어 안식일에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성서를 읽을 수 있게 허락되는 그 날을 고대하였다.

제 1 장. 열네 살 되던 해 (서기 8년)

126:1.1 (1387.1) 그 해에 그는 열네 번째 생일을 맞이하였다. 그는 훌륭한 멍에 만드는 자가 되었었고 그리고 천과 가죽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모두 능숙했다. 또한 전문적인 목수와 가구 만드는 자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 해 여름에, 그는 기도와 명상을 하기 위하여 나사렛 북서쪽에 있는 언덕 꼭대기로 자주 올라갔다. 그는 땅에서의 그의 증여의 본성에서 점진적으로 더욱 자아-의식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126:1.2 (1387.2) 이 언덕은 100년 보다 좀 더 오래 전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장소"였었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저명한 성자(聖者)인 시미온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다. 이 시미온의 언덕 꼭대기로부터 예수는 나사렛과 그 주변 지방을 바라보았다. 그는 메기도를 바라보며 이집트 군대가 아시아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던 이야기와; 그리고 그보다 후대에서는 다른 군대가 유대의 왕 요시아를 참패시켰던 이야기를 회상하곤 하였다.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는, 드보라와 바락이 시세라를 쳐부셨다는 장소인 타나크를 바라볼 수 있었다. 멀리로는,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배워온 도탄의 언덕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에발산과 게리짐 산으로 눈을 돌리고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아비멜렉에 대한 전설들을 혼자 회상해 보았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자기 아버지 요셉의 민족들과 관계된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사건들을 마음속에 회상하였다.

126:1.3 (1387.3) 그는 회당 학교 교사들의 지도하에, 고등(高等) 과정들에 해당되는 독해(讀解)를 계속해 나갔으며, 집에서는 자기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알맞은 나이가 되는 대로 그들의 교육을 계속하여 맡아보았다.

126:1.4 (1387.4) 예수가 다음 해 8월에 15세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교육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요셉은 이 해 초기에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입을 따로 저축해 두기로 하였다.

126:1.5 (1387.5) 이 해 초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똑같이 자기들의 맏아들의 운명에 대하여 자주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진정으로 총명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지만, 그를 납득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의 속을 헤아리기가 너무 힘들었으며, 게다가 그에게서 어떤 특출하거나 기적적인 사건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어떤 초인간적이거나 기적적인 솜씨를 보여 주기를 오랫동안 숨을 죽이고 기다려왔지만, 그녀의 기대는 늘 비참할 정도의 실망으로 끝나곤 하였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 의해서 용기를 잃게 되었고, 심지어는 낙담하기까지 하였다. 그 당시의 독실한 신자들은, 선지자들과 약속의 사람들은 항상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소명을 실증하고 자기들의 신성한 권위를 세워야한다는 말을 진정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에게서는 이러한 일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의 부모들은 그의 장래를 깊이 생각할수록 더욱 심각한 혼란에 빠져 들어갔다.

126:1.6 (1387.6) 나사렛 가정의 개선된 경제적 조건이 가정생활에 여러 모로 반영되었고 특히 목탄으로 그 위에 글씨를 쓸 수 있는, 필기 석판으로 사용되는 흰 색 칠판의 증가된 숫자에 반영되었다. 또한 예수는 그의 음악 교습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그는 하프를 연주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였다.

126:1.7 (1387.7) 그 해 전체 기간은, 예수가 “자라가면서 하느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졌다”고 표현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이 가족의 전망은 좋은 위치에 있었고
장래는 밝았다.

제 2 장. 요셉의 죽음

126:2,1 (1388,1) 숙명적인 날인 9월 25일 화요일이 오기까지는 모든 일들이 순조로웠으며, 그 날 세포리로부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요셉이 분봉왕의 관사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기중기에서 떨어져 심하게 다쳤다는 비참한 소식을 나사렛 가정에 알려주었다. 세포리에서 온 메신저는 요셉의 집으로 오는 길에 목공소에 들려 예수에게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알렸고, 마리아에게 그 슬픈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두 사람이 함께 집으로 달려갔다. 예수는 그 즉시로 아버지에게 가기를 원하였으나, 마리아는 자신이 남편의 곁으로 가는 것이 급하여 아무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 때 10살이었던 야고보를 세포리까지 동행하게 하고, 예수에게는 그 동안 집에 남아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어린 동생들을 돌보아 주도록 지도하였으며, 그 때 마리아는 요셉이 얼마나 심각한 중태에 빠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가 도착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그를

나사렛으로 옮겼으며, 다음 날 그의 선조들이 있는 곳에 장사 지냈다.

126:2.2 (1388.2) 전망이 좋았고 장래가 밝았던 바로 그 때에, 겉으로 보기에 무자비한 손길이 이 나사렛 가정의 가장(家長)을 쳐서 넘어뜨렸고, 이 가정의 관련사들은 중단되었으며, 예수를 위한 모든 계획과 장래의 교육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 막 14살이 지난 이 목수 소년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면서 신성한 본성을 계시하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위임 명령을 완수해야 할 책임뿐만 아니라, 과부가 된 어머니와 7명의 동생들—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다른 한 동생을 부양해야만 할 책임도, 그의 젊은 인간 본성이 어깨에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 실현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유족이 된 가족들에게는, 나사렛의 이 소년만이 유일한 부양자이며 위안이였다. 그리하여, 운명의 이 젊은이에게 유란시아 위에서 사건에서의 자연 질서에 순응하여 일어나게 된, 이러한 발생사건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에 이렇게 무거운 그러나 매우 교육적이고 교육단련적인 책임감을 길러 줄 수 있는 일이 너무 일찍 맡겨지는 듯이 보였으며, 이로써 예수는 한 인간

가족의 가장이 되었고, 자신의 동생들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어머니를 부양하고 보호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집,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동안에 체험하게 되는 유일한 가정생활의 수호자가 되었다.

126:2.3 (1388.3) 예수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그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잘 수행해냈다. 적어도 그에게는 자기 일생에 있어서 난국이 예상되는 하나의 큰 문제가 비극적으로 해결되었는데—, 그는 이제 랍비들 밑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되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의 제자도 아니다”는 말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실이였었다. 그는 항상 어린 아이로부터도 배울 자세가 되어있었던 반면에,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인간의 자료로부터 근거를 도입한 적은 결코 없었다.

126:2.4 (1388.4) 그 때까지도 예수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이 자기 어머니를 방문하였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대중을 위한 사명활동을 시작하던, 세례를 받던 날에야 요한으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126:2.5 (1388.5) 해가 지나면서, 나사렛의 이 젊은 목수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사회의 모든 제도들과 모든 종교적 관습들을 점점 더 깊이 분석하였다: 그것은 인간의 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사람에게 하느님을 알려 주는가? 그것은 하느님에게 사람을 알려 주는가? 이 젊은이는 오락적이며 사교적인 측면을 온통 외면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시간과 정열을 점점 더 두 가지 목적에 쏟아 부었는데: 그것들은 가족의 부양하는 일과, 자기 아버지의 천상(天上)의 뜻을 이 세상에서 펼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일이었다.

126:2.6 (1389.1) 이 해의 겨울 동안, 예수가 타는 하프 소리를 즐기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왜냐하면 예수는 굉장한 이야기꾼이었기 때문에), 그가 읽어주는 그리스어 경전을 듣기 위해 매일 밤마다 그의 집에 들르는 것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습관처럼 되었다.

126:2.7 (1389.2) 요셉이 죽었을 당시에는 상당한 돈이 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경제적 관련사들은 꽤 순탄한 편이었다. 예수는 일찍부터 사업적인 판단력이 있었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총명성을 실증하였다. 그는

자유주의적이고 검소하였다; 절약하면서도 관대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의 현명하면서도 효과적인 행정-관리자였다.

126:2.8 (1389.3) 그러나 예수와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그 가정에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요셉은 가버렸다. 요셉은 보통 찾아보기 힘든 남편이자 아버지였으며, 그들 모두는 그를 그리워하였다. 더구나 그들은 그에게 이야기를 할 기회 또는 그의 마지막 축복의 말을 들을 기회도 갖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더욱 애처로워하는 듯하였다.

제 3 장. 열다섯 살 되던 해 (서기 9년)

126:3.1 (1389.4) 15살이 되는 이 해 중순경에—우리는 유대인의 달력이 아니라 20세기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달력에 의해서 계산하고 있다—, 예수는 가정을 운영하는 일을 확고하게 장악했다. 그 해가 다 가기도 전에, 저축했던 돈은 모두 바닥이 났고, 그리하여 그들은 그의 이웃인 야곱과 요셉이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나사렛에 있는 집들 중에서 하나를 처분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126:3.2 (1389.5)

서기 9년 4월 17일 수요일 밤에, 그 가정의 마지막 아기인 룻이 태어났으며, 예수는 이렇게 힘들고 특별히 슬퍼하는 호된 시련의 기간 중에 처해있는 어머니를 위안하고 섬기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려고 온갖 힘을 다 기울였다. 거의 20여 년 동안 (그가 자신의 대중을 위한 사명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예수는 룻을 기르는 데 있어서 세상의 어느 아버지보다도 더 큰 애정을 가지고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양육하였다. 그는 또한 자기 가족의 일원들인 다른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좋은 아버지 노릇을 하였다.

126:3.3 (1389.6)

이 해 동안에, 예수는 처음으로 기도를 구체화시켰는데, 그는 나중에 자신의 사도들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쳤으며, 이 기도는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도"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가정 경배로부터 발전되어 형성된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이미 많은 형태의 찬미들과 여러 개의 공식적인 기도문들이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예수는 나이가 든 동생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개별적으로 표현하는—자신이 그렇게 하기를 매우 즐겼던 것과 마찬가지로의—방법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그의 의도를

깨달을 수가 없었으며 자기들이 암기하고 있던 기도의 형식으로 늘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이 제시한 구절들을, 나이가 든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따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나중에는 자기가 없어도 그들이 각자 기도할 수 있도록 고무시키려고 노력했었는데, 그 결과로, 예수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에게 제시했던 이 구절들로 대부분 만들어 진 하나의 형식화된 기도를 모두가 사용하게 되었다.

126:3.4 (1389.7) 마침내 예수는, 가족들 각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였던 자신의 관념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10월 어느 날 저녁에, 돌로 만든 낮은 탁자 앞에 앉아서, 약 18 인치 정사각형의 매끄러운 나무판위에 묵탄으로 그 기도문을 썼는데, 이 후부터는 이것이 가족들이 하는 기도의 표준이 되었다.

126:3.5 (1389.8) 그 해에 예수는 혼란스런 생각들로 매우 뒤숭숭한 시간을 보냈다.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방문 하였을 때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일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다"고 자기에게 가르쳐준 것에 대하여 즉시 실행에 옮기려던 모든 계획은 이미 거의 효과적으로

없애 버렸다. 예수는 육신적인 아버지의 가족을 돌보는 것이 모든 다른 의무들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자신의 첫 번째 의무라고, 정확하게 판단하였다.

126:3,6 (1390.1) 그 해를 지내면서, 예수는 에녹서라고 불리는 것로부터 한 구절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자신의 유란시아에서의 증여 임무를 표현하는 하나의 호칭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그 구절에서 따오도록 영향을 주었다. 그는 유대인의 메시아에 대한 관념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았으며, 그런 후에 그는 자기가 결코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민족을 도움을 주는 것은 애타게 갈망하였지만, 유대 군대를 이끌고 가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려는 생각은 결코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좌에 절대로 앉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단지 유대인들만의 영적 해방자나 도덕적 선생으로 국한되어 있다고도 믿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사명은 어떤 면에서도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히브리 경전에 나타난 예정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실행하는 데

있지 않았다; 적어도 유대인들이 예언자들의 예언들을
납득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은 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에서 묘사하는 그러한 사람의
아들로서는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였다.

126:3.7 (1390.2) 그러나 자신이 세상의 선생으로 나아갈 때가
오면, 자기를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인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해야만 할 것인가?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어떤 명칭으로
부르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126:3.8 (1390.3)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을 마음속에서 숙고하는
가운데, 그는 나사렛 회당 도서관에서 그가 공부하고
있었던 묵시적인 책들 중 “에녹서”라고 불리는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이 그 옛날의 에녹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지만, 그의 흥미를 매우 끌었고,
그래서 그는 그것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아들”라는 용어가 나타나 있는 구절이 특히 그의
관심을 끌었다. 소위 에녹서라고 불리는 이 책의 저자는
그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 지에 대하여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하고 있었으며, 이

사람의 아들은 자신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기 전에,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느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스러운 정원을 함께 거닐었다; 그리고 불쌍한 필사자들에게 구원을 선언할 목적으로 이 세상으로 내려오기 위해 이러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렸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예수가 이 구절들을 읽곤 하였을 때, (이들 가르침이 섞여 들어가게 된, 동방의 신비주의 가운데 많은 것이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잘 납득하고 있으면서) 그의 가슴 속에서 응답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히브리 경전들 속에 있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모든 부분들과 유대인의 해방자에 대한 모든 이론들 중에서, 유일하게 부분적으로 인정을 받은 이 에녹서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이야기만큼 진리에 가까운 것은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바로 그 때 그 책으로부터, 자신의 취임에 대한 명칭으로 "사람의 아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나중에 대중을 위한 일들을 시작하였을 때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예수는 어떠한 출처에서 그것이 발견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진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힘을 갖고 있었으며, 그 진리를 채택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126:3.9 (1390.4) 이 무렵에, 그는 앞으로 세상을 위하여 할 많은 일들을 거의 완벽하게 결정을 내려놓았지만, 아직도 자기 아들이 유대인의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관념을 굳게 가지고 있던 어머니에게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26:3.10 (1390.5) 이제 예수의 젊은 시절 동안의 큰 혼란기가 시작되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자기 아버지의 사랑 넘치는 본질을 모든 인류에게 나타내 보이는—자신의 땅에서의 사명에 대한 본질을 어느 정도 결정하면서, 그는 민족적인 해방자, 유대인의 선생 혹은 왕의 출현에 관하여 기록한 성서들 중에서 많은 구절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생각해 보기 시작하였다. 이 예언들은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그는 비 유대인인가? 아니면 유대인인가? 그는 다윗 가문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어머니는 그렇다고 단언하였고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그

자신도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결정을 하였다. 그러면 예언자들이 메시아의 본성과 사명을 혼동했었던 것일까?

126:3.11 (1391.1) 결국, 그의 어머니의 말이 맞을 가능성도 있었을까? 과거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에, 결국 어머니가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었다. 만약에 그가 하나의 새로운 선생이고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가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행하는 동안에 혹시 그러한 유대인의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그를 알아볼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나아가서, 이 유대인 메시아와 자신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가 사명을 착수한 후에는 가족들과, 유대 국가 그리고 종교와, 로마제국과,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의 종교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일까? 자신과 어머니와 그리고 다른 8명의 배고픈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목공소에서 계속 작업하는 동안, 이 젊은 갈릴리 사람은 이러한 중대한 문제들 하나하나를 마음속에서 떠올리면서 진지하게 심사숙고하였다.

126:3.12 (1391.2) 그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마리아는 가족을 위해 마련된 돈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비둘기 파는

일을 야고보에게 넘겼다. 그들은 이윽고 두 번째 소를 구입하게 되었고, 미리암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사렛의 이웃들에게 우유 판매를 시작하였다.

126:3.13 (1391.3) 예수의 긴 시간 동안의 명상과, 기도하기 위해 언덕 꼭대기로 자주 가는 것, 그리고 때때로 그가 제시하는 이상스러운 많은 관념들로 인하여, 그의 어머니는 몹시 불안해하였다. 그녀는 간혹 자기 아들이 제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그럴 때마다 그녀는 그 아이가 약속의 아이이므로 다른 젊은이들과는 어떤 면으로든지 다를 것임을 기억해냄으로써 결국 안정을 되찾곤 하였다.

126:3.14 (1391.4) 그러나 예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어머니에게 까지도, 자기 생각들 전부를 말하지 않고 자기 관념들 전부를 제시하지 않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그 해부터 계속하여, 예수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서, 보통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다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 다르거나 특별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문제들을

납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고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볼 때에는 모든 면에서 평범하였고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믿을 수 있고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친구를 매우 갈망하고 있었지만, 그의 문제는 연관-동료 인간들이 납득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것이었다. 이렇게 유별난 상황의 독특성이 그로 하여금 그의 짐을 홀로 지도록 강요하였다.

제 4 장. 회당에서의 첫 번째 설교

126:4.1 (1391.5) 15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예수는 이제 안식일에 공식적으로 회당의 설교단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 전에도 예수는, 연사가 없을 경우에 성서를 읽어달라는 청을 여러 번 받았었지만, 이제는 법에 따라서, 그가 직접 예배봉사를 수행할 수 있는 날이 이르렀다. 따라서 15번째 생일이 지난 후 첫 번째 안식일에, 카잔은 회당의 아침 예배봉사를 예수가 수행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래서 나사렛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 젊은이는 다음과 같은 성서 구절을 선택하여 일어서서 읽기 시작하였다:

126:4.2 (1391.6) “주님 하느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이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슴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 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영적으로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하느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느님의 응보의 날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재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희락의 기쁨을, 근심의 영 대신 찬송의 노래를 그들에게 주어, 주께서 영화롭게 될 곳에, 주님이 심으신, 정의(正義)의 나무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126:4.3 (1392.1)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 주님 하느님께서 아마도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126:4.4 (1392.2)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억압받는 자들을 풀어주라. 아비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다.”

126:4.5 (1392.3)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세상 만물의 주님 앞에 경배할까? 내가 일 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주님께서 수천 마리의 숫양이나 수만 마리의 양, 아니면 강 같이 흐르는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아니라,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느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126:4.6 (1392.4)

“그런즉 너희가 지구의 순환계 위에 앉으신 하느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볼 것이며, 누가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셨는지를 보라. 자기의 크신 권세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그의 힘이 강하므로 하나도 이루지 못한 것이 없느니라.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느님이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정의로움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니, 이는 내가 주님 너의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말하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126:4.7 (1392.5)}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나의 하인으로 너희를 택하였으니, 이는 너희 모두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영원자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다. 나는 주님이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126:4.8 (1392.6)} 그렇게 읽고 난 다음, 그가 자리에 앉았으며, 그런 후에 사람들은 예수가 그토록 우아하게 자기들에게 읽어주었던 문구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성읍사람들은 그에게서 그렇게 엄숙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토록 열성적이고 진지한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토록 어른스럽고 단호하고 권위 있는 모습을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126:4.9 (1392.7)} 이 안식일 오후에 예수는 야고보를 데리고 나사렛 언덕으로 올라갔으며, 그들은 집으로 돌아온 후에 두 장의 매끈한 나무판들 위에 목탄을 사용하여 그리스어로 십계명을 썼다. 나중에 마르다는 이 판들에 색을 칠하고 장식을 하였는데 이것들은 오랫동안 야고보의 작은 작업장 벽에 걸려 있었다.

제 5 장. 경제적인 분투

126:5.1 (1392.8) 예수와 가족들은 점차적으로 그들의 초기의 검소한 생활로 돌아갔다. 옷과 그리고 음식까지도 간소해졌다. 우유와 버터 그리고 치즈는 풍부하였다. 제철이 되면, 집에 있는 밭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을 수 있었지만, 달이 지나갈수록 더욱 더 절약하는 생활의 실천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들의 아침 식사는 매우 간단했으며; 가장 좋은 음식은 저녁을 위해 남겨두었다. 그러나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이러한 경제적인 빈곤이, 반드시 사회적으로도 열등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126:5.2 (1392.9) 이 젊은이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가정에서 들판에서 공장에서의 생활들을 잘 납득하고 있었는지는, 나중에 그의 가르침들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그의 가르침들은 인간이 체험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하여 그가 얼마나 조예가 깊었는가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126:5.3 (1392.10) 나사렛의 카잔은 예수가 하나의 위대한 선생이 되어서,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저명한 가말리엘의 후계자가 되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다.

126:5.4 (1393.1) 겉으로 보기에 생애에 대한 예수의 계획들 모두가 어그러진 것 같았다. 지금 진행되어지는 상태로 보서는 그의 미래도 별로 밝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으며 낙심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의 임무를 잘 수행하면서 그리고 자기 생활 속에서 즉각적인 책임들에 대하여 신실하게 이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예수의 일생은, 낙망에 빠져 있는 모든 이상가들에게 영속되는 위안을 주고 있다.

126:5.5 (1393.2) 날품팔이 목수의 임금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예수는 그 해의 말쯤에는 아침 일찍부터 늦게 까지 일을 해서 하루에 겨우 25 전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 수 있을 뿐이었다. 다음 해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회당 부과금과 반 세겔의 성전 세금은 그만 두고라도 정부 세금을 내는 일조차 힘에 겨워졌다. 그 해 동안에 세금 징수원은 예수로부터 돈을 더 거두려고 안간 힘을 다 쓰면서, 그의 하프를 빼앗아 가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126:5.6 (1393.3) 예수는 그리스어 경전 사본이 세금 징수원에게 알려져서 압수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15번째 생일에 자신의 성인식을 기념하여 주님께 제공하는 헌납으로 나사렛 회당 도서관에 그것을 기증하였다.

126:5.7 (1393.4) 15살이 되던 이 해에, 요셉이 사고로 사망했을 당시에 그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돈의 액수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헤롯에게 제출하였던 문제에 관한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려고 예수가 세포리로 갔었는데, 그때 그는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다. 세포리의 재정 담당자가 약속한 액수를 제시했었을 당시, 예수와 마리아는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헤롯에게 직접 진정서를 냈었고, 이제 예수는 궁전 안에 서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당시에 그가 받아야만 할 돈이 하나도 없었다는 헤롯의 판결을 듣게 되었다. 그러한 부당한 결정 때문에, 예수는 그 이후 헤롯 안티파스를 결코 신임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언젠가 헤롯을 "그 여우"라고 언급했던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126:5.8 (1393.5) 그 해와 다음 해 동안에, 예수는 목공소 작업대를 떠날 수 없었던 관계로, 카라반 여행자들과 어울리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던 작업장은 이미 그의 삼촌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는 집에 있는 작업장에서 다 같이 일하면서 가족과 함께 마리아에게 도움을 주려고 가까이 있었다. 이 무렵에 그는 낙타 집결 장소에 야고보를 보내서 세상 사건에 관한 정보들을 듣고 오게 함으로써, 그 당시의 소식과 계속 접할 수 있도록 애를 썼다.

126:5.9 (1393.6) 어른으로 자라면서, 그는 그 나이 전후에 있는 보통 젊은이들이 겪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곤란과 혼란을 체험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가족을 부양하는 혹독한 체험은, 그로 하여금 무의미한 명상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거나 신비적인 경향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었다.

126:5.10 (1393.7) 예수가 자기 집 바로 북쪽에 상당히 커다란 땅을 세내어 가족의 밭을 일구었던 것도 그해에 있던 일이었으며, 작은 밭을 꾸밀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분할되었다. 나이 든 동생들은 각자 자기 몫의 밭을 갖도록

하였고, 그들은 큰 경쟁을 벌이면서 농사를 지으려고 애썼다. 채소를 기르는 시절에는, 그들의 만형이 매일 얼마간의 시간을 밭에서 함께 보내 주었다. 예수는 동생들과 밭에서 함께 일하면서, 그들이 시골로 가서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방해받지 않고 살아가는 농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 번 원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시골에서 자라날 수 있는 기회는 결국 갖지 못하였다; 이상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속속들이 실천적이었던 젊은 예수는 문제들이 일어나는 대로 지혜롭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대처하였으며, 자신과 가족들이 그들의 개별적 그리고 집합적 소원들이 가능한 최고의 만족을 얻도록 그들 상황의 실체들과 그리고 그들의 조건에 조절하는 일에 힘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모든 노력을 다 하였다.

126:5.11 (1393.8) 예수는 한때, 아버지가 헤롯의 궁전을 지으면서 받아야 할 상당한 돈을 자기들이 받게 되면 조그마한 농장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보증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느다란 희망을 가졌었다. 그는 실제로 가족을 시골로 이사시키는 계획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해 두었었다. 그러나 헤롯이 요셉에게 주어야 할 돈을 지불하기를

거부하자, 그들은 시골에서 집을 소유하고 싶다는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있는 그 상태대로, 그들은 이제 비둘기들 이외에도 세 마리의 소들과 네 마리의 양들과 닭 몇 마리와 한 마리의 당나귀 그리고 한 마리의 개를 소유하면서 농장 생활의 체험을 즐겼다. 걸음마 하는 어린아이까지도, 이 나사렛 가족생활의 특징인 잘=규제된 관리 계획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일정한 의무가 주어져 있었다.

126:5.12 (1394.1) 15년째의 이 해가 끝나면서, 예수는 인간 체험에 있어서 그토록 위험스럽고 어려웠던 기간으로의 선회 시기, 좀 더 안정되었었던 아이 시절과 증가된 책임들과 고상한 성격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될 체험을 얻는 기회들을 가지면서 어른으로 되어 가는 것을 의식하는 시절 사이에서 겪은 과도기를 종결짓게 되었다. 마음과 육체의 성장기가 끝났으며, 이제 이 나사렛의 젊은이의 실제 생애가 시작되었다.

제 127 편 청년기 시절

127:0.1 (1395.1) 예수가 청년기 시절로 접어들었을 때, 그는 큰 가족의 가장이자 오직 하나뿐인 부양자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들의 재산은 바닥이 났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는 자신의 이전(以前)-실존에 대해 점점 더 의식을 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파라다이스 아버지를 사람들의 자녀에게 계시하는 목적을 위하여 자기가 육신을 입고 지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충분하게 깨닫기 시작하였다.

127:0.2 (1395.2) 이 세상이나 혹은 다른 어떤 세상에 이제까지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어떤 청소년도,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거나 더 복잡한 어려움을 풀어야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유란시아의 어떤 젊은이도, 예수가 15세에서 20세가 되는 세월 동안 견디어야 했던 것보다 더 심한 시험적인 갈등들이나 혹은 더 쓰라린 상황들을 체험하도록 요구되지는 않을 것이다.

127:0.3 (1395.3) 악에 휩싸여 있고 죄로 혼란되어 있는 세상에서 이러한 청년기 시절의 삶을 실재적인 체험을 맛보면서, 사람의 아들은 네바돈에 있는 모든 세계들의 젊은이가 체험하는 생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그는 지역우주 전역을 통하여 모든 세대들과 모든 세계들 속에서 괴로워하고 난처한 지경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에게 언제까지나 그들을 납득하는 피난처가 된 것이다.

127:0.4 (1395.4) 이 신성한 아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실재의 체험을 통하여, 자기 우주에 대한 주권자가 되었고, 지역우주에 있는 모든 세계들의 창조된 지능존재들의 의심할 수 없는 최극 통치자가 되는 권리를 획득하였으며, 또한 모든 세대의 존재들과, 개인적 자질 그리고 체험의 수준이 서로 다른 모든 존재들을 납득하는 위로자가 되었다.

제 1 장. 16살 되던 해 (서기 10년)

127:1.1 (1395.5) 육신을 입고 태어난 아들은 평온한 유아기와 소년기를 체험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시험받고 힘들었던 전환기 시절을 탈피하게 되었다—그는 청년 예수가 되었다.

127:1.2 (1395.6) 그 해에 그는 충분한 육체적 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는 남자답고 잘생긴 젊은이였다. 그는 점점 더 침착하고 진지하게 되어갔지만,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았다. 그의 눈은 온유했으나 예리하였다; 그의 미소는 항상 남을 사로잡았고 위안을 주었다. 그의 음성은 음악소리

같았으나 위엄이 있었다; 그의 인사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으나 소박하였다. 그에게는 언제든지, 심지어는 가장 일상적인 만남에서까지도,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의 양면적인 본성이 마주치고 있다는 증거가 보이는 듯하였다. 그는 언제든지 동정심이 가득한 친구와 위엄을 갖춘 선생으로서의 조화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특색들은, 그가 청년기 시절에 이르기까지, 일찍부터 현시가 시작하였다.

127:1.3 (1395.7) 이렇게 육체적으로 강하고 건장한 젊은이는, 또한 인간 지능의 충분한 성장, 인간의 생각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체험이 아니라 그러한 지능 발달을 위한 수용능력의 충만함을 성취하였다. 그는 건강하고 잘 균형 잡힌 육신, 예리하고 분석적인 마음,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은 기질,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졌지만 적극적인 성미를 갖고 있었으며,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하나의 강하고 뛰어나고 매력적인 개인성을 구성하고 있었다.

127:1.4 (1396.1) 시간이 지나나갈수록,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은 그를 납득하기가 힘들어졌으며; 그들은 그의 말들 때문에 당황하였고 그의 행동들을 잘못 해석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어머니가, 만형이 유대 민족의 해방자가 되기로 운명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납득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그의 일생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들이 마리아로부터 가족들만 아는 그러한 비밀을 듣고 받아들였었고 그 후에, 예수가 그러한 모든 관념들이나 의향들에 대하여 솔직하게 부인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을지 상상해 보라.

127:1.5 (1396.2) 그 해에 시몬이 학교에 가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또 하나의 집을 팔아야만 하게 되었다. 이제는 야고보가 세 명의 여동생들을 맡아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두 여동생들은 진지하게 공부를 시작할 나이가 되었다. 룯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자, 바로 미리암과 마르다가 맡아보았다. 유대인 가정의 여자아이들은 대개 거의 교육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예수는 여자아이들도 남자아이들과 똑같이 학교에 가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으나(어머니도 같은 의견이었다), 회당 학교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정 학교를 수행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127:1.6 (1396.3) 그 해 내내, 예수는 작업대에서 조금도 떠날 수가 없었다. 다행히 그에게는 일거리가 많았다; 그의 솜씨가 매우 우월하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이 아무리 줄어든다 해도, 그에게는 한가하게 지낼 시간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 어떤 때에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야고보가 그에게 도움을 주곤 하였다.

127:1.7 (1396.4) 그 해 말경에는, 가족을 양육하여 그들이 결혼을 하는 것을 보게 된 후에,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내는 계시자로서 자신의 일을 대중적으로 시작하기로 거의 마음을 굳혔다. 그는 그들이 고대하는 유대인의 메시아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머니와 상의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이제까지 과거에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이 그녀에게 거의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생전에 어떤 말로도 그녀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가 스스로 선택한 관념이 무엇이건 간에 내버려두기로 결정하였다. 그 해부터, 어머니에게나 또는 다른 누구에게도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그의 문제들은 너무나 특수한 것이었으므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일에 관해 그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127:1.8 (1396.5) 그는 어리기는 하였지만 가족들에게 실제적인 아버지와 다름이 없었다; 가능한 한 모든 시간을 어린 동생들과 보내려고 노력하였고 동생들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그토록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슬퍼하였다; 자기들이 그토록 쉽게 계획하였던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랍비들과 공부하는 대신에,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그가 목공소에서 매일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이 안타까웠다. 마리아는 자기 아들을 납득하기 어려운 구석이 매우 많았지만, 그를 매우 사랑하였고, 가정을 위해 맡겨진 책임을 기꺼이 지려고 하는 그의 태도에 대해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사를 하고 있었다.

제 2 장. 17살 되던 해 (서기 11년)

127:2.1 (1396.6) 이 무렵에,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항하는 반역에 가담하려는 심각한 동요가 일어났으며, 특히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심하였다. 이윽고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강한 민족주의자 분파가 생기게 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달리, 열심당 사람들은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치적인 반란을 통하여 일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127:2.2 (1396.7)} 예루살렘에서 온 한 집단의 조직원들이 갈릴리에 도착하였고, 그들은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나사렛까지 왔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을 때, 그는 그들의 말을 경청하였고 많은 질문들을 했으나, 그 당에 참여하는 것은 거절하였다. 그는 가입하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 충분히 밝히기를 사양했으며, 그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나사렛에 있는 많은 그의 젊은 동료들도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영향을 주었다.

^{127:2.3 (1397.1)} 마리아는 그를 설득하여 참여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지만, 그를 움직이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민족주의자들을 지지하라고 요청하는 자기 말을 거역하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면서 부모에게 복종하겠다고 그의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지만; 이렇게 넌지시 비치는 말에 대해,

그는 단지 어머니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마리아는 자기주장을 철회하였다.

127:2.4 (1397.2) 예수의 삼촌들 중에서 한 사람(마리아의 오빠인 시몬)은 이미 이 집단에 가입하였고, 나중에는 갈릴리 지역의 관리자가 되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이나 예수와 그의 삼촌은 약간 소원한 관계에 있었다.

127:2.5 (1397.3) 그러나 문제가 나사렛에서 다시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 일들에 대한 예수의 태도를 놓고 그 도시의 젊은이들 사이에 패가 갈리는 결과가 생겼던 것이다. 절반가량의 젊은이들은 민족주의자 조직에 가담하였고, 나머지 반은 좀 더 온건한 애국자 집단을 만들어 예수가 그들의 영도자관계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예수에게 이러한 명예로운 직위가 주어졌을 때, 그가 가족 부양의 책임을 이유로 그 직위를 사양하자, 그들이 몹시 놀랐지만, 그들은 모두 그의 거절을 수긍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방인들에게 돈을 대부하는 유대인 갑부 이삭이, 예수가 목공일을 그만두고, 나사렛에 있는 이 애국자들의

영도자관계가 된다면, 그의 가족을 자기가 부양하겠다고 나서게 되자, 이 사태는 더욱 난처하게 되었다.

127:2.6 (1397.4) 그 때 겨우 17살이 된 예수는, 자신의 일생 초기에 있어서 가장 미묘하고 어려웠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세금을 징수하려는 외국의 압제자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영적 영도자들이 애국적인 문제에 직접 관계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었으며, 게다가 이 경우에는 로마에 대항하려는 선동에 유대 종교가 관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갑절이나 더 어려웠다.

127:2.7 (1397.5) 예수의 입장은, 그의 어머니와 삼촌 그리고 동생 야고보까지 모두가 그에게 민족주의자 운동에 참여하라고 종용하였기 때문에,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대부분의 나사렛 유대인들이 등록하였고, 이 운동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젊은이들도 예수가 그의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모두 같이 등록하려고 하였다. 나사렛에서 그에게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어준 단 한 분은 전에 그를 가르쳤던 카잔이었으며, 나사렛의 시민위원회가 이미 발표한 대중적인 호소에 대해 그의 대답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왔을 때, 그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에게 조언해 주었다. 예수의 어린 시절을 통틀어서, 그가 대중적인 정책에 의식적으로 꾀를 쓴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 때까지 그는 사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솔직하게 진실만을 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모든 진실을 발표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공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좀 더 성숙된 성년기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명에 대한 자신의 관념을 알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의 종교적 신의와 민족적 충성심은 직접적인 도전을 받았다. 그의 가족들은 혼란 속에 빠졌고, 그의 젊은 친구들은 패가 갈렸고, 그 성읍의 모든 유대인 대표자들에게는 소란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에게 책임이 돌려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그가 의도적으로 일으키려고 획책한 적은 전혀 없었으며, 이런 종류의 소동은 더욱 그러하였다.

127:2.8 (1397.6) 무슨 조치든지 취해져야만 하였다. 그는 자기 입장을 밝혀야만 하게 되었고, 그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용감하게 그리고 외교적으로 이것을 처리하였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의무는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것임을 주장하였고, 과부인 어머니와 8명의 동생들에게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물질적인 생활필수품들) 이상(以上)의 어떤 것들, 아버지의 보살핌과 다스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비참한 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떠맡게 된 그러한 의무를 양심상 도저히 저버릴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처음부터 변명하였던 그 이유를 고수하였다. 그는 그러한 의무로부터 자기를 기꺼이 해방시켜 주려는 어머니와 큰 동생에게 감사를 표명하였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께 대한 신의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을 물질적으로 돕기 위해 아무리 많은 돈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자기 가족을 떠날 수 없다고 반복하면서, “돈은 사랑이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말을 하였다. 이러한 말을 하는 도중에 예수는 여러 번 자신의 “일생의 사명”에 대해 암시하였지만, 그것이 군사적 관념과 모순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계없이, 가족에 대한 자기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끝마칠 때까지는 자기 일생에 있어서의 다른 모든 것들이 뒤로 미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나사렛의 모든 주민들은, 그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훌륭하게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데다가 이 문제는 모든 고상한 유대인들의 정서와 매우 잘 부합되는 주제였기 때문에, 예수의 답변은 대부분의 청중들의 가슴을 움직였으며; 그러한 마음을 품지 못한 일부분의 사람들도, 계획에 없었던 야고보의 연설이 이 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동요되었다. 바로 그 날 카잔이 야고보에게 연설하도록 연습시켰는데, 이것은 그들만의 비밀이었다.

^{127:2,9 (1398.1)} 야고보는 말하기를 자신이 가족의 책임을 대신 질 수 있을 만큼만 성장해 있었다면, 예수가 민족 해방 운동에 틀림없이 도움을 주었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그들이 예수가 가족들과 함께 남아있도록 허락한다면, "그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와 선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요셉의 가족 중에서 단 하나의 영도자 대신에 다섯 명의 충성스러운 민족주의자들을 갖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형님-아버지의 지도아래 자라나는 우리 다섯 형제들 중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 일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매우

긴장되고 위험스러웠던 상황이 꽤 만족스러운 결과로 끝나게 하였다.

127:2.10 (1398.2) 그 위기는 일시적으로 지나갔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이 사건을 결코 잊지 않았다. 이러한 선동은 계속되었다; 예수가 다시는 모든 사람들 전체의 호감을 사지 못하게 되었고, 갈라진 정서는 끝내 극복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일어난 다른 발생 사건들과 합쳐져서 증강되어, 예수가 훗날 가버나움으로 옮겨간 주요 원인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때부터 나사렛은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정서의 분리를 유지하였다.

127:2.11 (1398.3) 그 해에 야고보가 학교를 졸업하였고, 집에 있는 목공소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미 연장을 잘 다루는 기술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명예와 쟁기를 만드는 일을 전담하였으며, 반면에 예수는 집을 완결하는 일과 숙련자의 작업장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였다.

127:2.12 (1398.4) 그 해에 예수의 마음이 조직화되는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는 자신의 신성한 본성과 인간

본성을 점차 결합시키게 되었으며, 아들이 증여된 이후의 모든 세계들 속에 존재하는 모든 보통 필사자들 마음속에 거하고 있는 감시자와 똑같은, 내주하는 감시자의 도움을 받았을 뿐, 그 외에는 자신의 직접적인 결정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지성의 조직화를 모두 성취하였다. 이때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밤에 그에게 한 번 나타났던, 그의 형 임마누엘이 보낸 메신저의 방문 이외에는 아무런 초월적인 사건도 이 젊은이의 생애 속에 일어나지 않았다.

제 3 장. 18살 되던 해 (서기 12년)

^{127:3.1 (1398.5)} 그 해를 지나는 동안, 집과 밭을 제외하고, 가족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들이 처분되었다. 가버나움에 있는, 이미 어느 정도 저당 잡히고 있는 마지막 부동산(다른 하나의 담보로 잡혀 있는 하나를 제외하고)이 팔렸다. 이 돈은, 세금 납부와, 야고보를 위한 연장들의 구입, 그리고 카라반이 머무르는 곳 가까이에 전에 가지고 있던 가정용품과 수리 가게의 대금을 얼마간 지불하는데 사용했는데, 이제는 야고보가 집에 있는 목공소에서 일하면서 마리아의 집안일을 도울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 목공소를 다시 구입할 것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압박이 당분간 조금

수월해지자, 예수는 유월절에 야고보를 데리고 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따로 가기 위해 하루 먼저 출발해서 사마리아를 경유하여 갔다.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는 자기 아버지가 5년 전에 자기에게 가르쳤듯이, 가는 도중에 있는 역사적인 장소들에 관하여 야고보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127:3.2 (1399.1) 사마리아를 지나는 길에, 그들은 생소한 광경들을 많이 목격하였다. 이 여행에서 그들은 개인적, 가족적, 그리고 민족적 문제들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야고보는 신앙심이 매우 깊은 소년이었으며, 예수가 필생의 과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는 거의 알지 못하였지만 어머니의 견해에 충분하게 동의하지 않았고, 그가 가족들의 부양을 떠맡게 되어 예수가 그의 사명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였다. 그는 예수가 자기를 유월절 행사에 데려가 준 것에 대하여 매우 고마워하였고, 그 전 어느 때보다도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127:3.3 (1399.2) 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예수는 많은 생각을 했는데, 특히 베델에서 그리고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떠 마실 때 더욱 그러하였다. 예수와 그의 동생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통들에 대해 토의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야곱이 곧 보게 될 광경들에 관해 그에게 미리 가르쳐주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성전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받았던 그러한 충격을 동생이 덜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러한 광경들에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어떤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성의가 없는 태도로 임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는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을 매우 즐겼다.

127:3.4 (1399.3) 예수는 유월절 저녁 식사를 위해 야고보를 데리고 베다니로 갔다. 시몬이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기 때문에, 예수가 유월절 가족의 가장(家長) 자격으로 성전으로부터 가지고 온 유월절 어린양을 가지고 의식을 치렀다.

127:3.5 (1399.4)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마리아는 야고보와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르다와 나사로와 예수는 밤이 늦도록 함께 이야기를 하였다. 다음 날 그들은 성전 예배봉사에 참석하였으며, 야고보는 이스라엘의

국민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날 아침,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기 위해 올리브 산기슭에 쉬는 동안, 야고보는 경탄하면서 환성을 질렀고, 예수는 아무 말 없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었다. 야고보는 형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날 저녁 그들은 다시 베다니로 돌아갔고, 다음 날에는 집으로 떠나려고 하였지만, 야고보는 선생들의 토론을 다시 듣고 싶다는 이유를 대면서 성전을 다시 방문하러 가자고 졸랐다. 이 말이 사실이기도 하였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은밀하게 자기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가 그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성전으로 갔고 토론하는 것들을 들었지만, 예수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사람과 하느님의 마음을 자각하고 있는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은 너무도 미숙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단지 그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예수가 질문을 하지 않자, 야고보는 실망하였다. 동생의 물음에 그는 단지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127:3.6 (1399.5) 그 다음 날, 그들은 여리고와 요단 계곡을 지나 집으로 향하였으며, 예수는 길을 가면서 자기가 13살에 이

길을 지나갔던 지난번의 여행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였다.

127:3.7 (1399.6) 나사렛에 돌아오자, 예수는 옛날의 가족 수리소에서 일을 시작했으며, 세상 사방에서와 근처 지역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을 매일 만나게 되어 매우 즐거워하였다. 예수는 사람들—그저 평범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였다. 매 달 그 가게에 대한 불입금을 지불하였고, 야고보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족을 계속 부양하였다.

127:3.8 (1399.7) 예수는 외부 방문객이 없을 경우에, 일 년 중 여러 차례, 회당에서 안식일 경전 구절을 계속해서 읽었으며, 그가 읽은 구절에 대한 주석을 여러 번 요청 받기도 하였지만, 그는 대개 주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절들을 골랐다. 그는 몇 개의 구절들을 골라 배열함으로써 한 구절이 다른 구절을 설명하도록 하는 데 능숙하였다. 날씨가 허락하는 한, 그는 한 번도 빠지 않고, 안식일 오후마다 동생들을 데리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보를 하였다.

127:3.9 (1400.1) 이 무렵에 카잔이 철학적인 토의를 위한 젊은이의 모임을 창시하였고, 그들은 각각 다른 회원들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으며 자기 집에서도 자주 모였는데, 예수는 이 모임에서 탁월한 일원(一員)이 되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예수는 최근의 민족적 운동 파문으로 잃었던 동네에서의 자신의 명성을 약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127:3.10 (1400.2) 제한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그의 사회생활이 전적으로 무시된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많은 나사렛의 남녀 젊은이들 중에는 다정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

127:3.11 (1400.3) 9월에, 엘리자벳과 요한이 나사렛 가족을 방문하였다. 아버지를 잃은 요한은, 예수가 자기에게 목공소를 맡거나 혹은 다른 종류의 일을 하면서 나사렛에 남아있으라고 권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대 지방의 구릉지로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양을 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사렛 가족이 실천적으로 매우 쪼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마리아와 엘리자벳은 자기 아들들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두

젊은이들은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더 많이 아는 것이 좋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127:3.12 (1400.4) 예수와 요한도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매우 상세하고도 개인적 문제들을 의논했다. 그들이 방문을 끝나치고 떠날 무렵이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부르심"에 따라 일을 시작한 후에 대중을 위한 봉사 안에서 만나게 될 때까지, 다시는 서로 만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요한은 나사렛에서 자신이 목격하였던 것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게 되어, 자기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 일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예수의 일생 동안의 사명에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에 대해 확신하였지만, 예수가 그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아직도 여러 해를 보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작은 농장을 보살피고 자기 어머니를 섬기는 일에 훨씬 더 만족해하였다. 그리고 요한과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에 나오는 그 날 까지 한 번도 서로 만나지 않았다.

127:3.13 (1400.5)

그 해 12월 3일 토요일 오후에, 이 나사렛 가족에게는 두 번째의 죽음이 찾아왔다. 아기 동생 아모스가 고열로 일주일 동안 앓다가 죽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맏아들과 함께 이 슬픈 기간을 견디어 낸 후부터, 마리아는 드디어 예수를 진정한 가장으로 충심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는 실제로 자격이 있는 가장이었다.

127:3.14 (1400.6)

4년 동안이나 그들의 생활수준이 점점 더 낮아졌으며; 해마다 그들은 빈곤한 상태가 심화되는 것을 느꼈다. 그 해의 말경에는 힘든 경제 사정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야고보는 아직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장례비용이 제일 큰 문제였다. 그러나 예수는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슬퍼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의 미소는 우리에게 더욱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날들이 좀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매일 매일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굵치지 않는

실천적인 낙천주의는 진정으로 영향력이 있었다; 다른 모든 아이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세월과 일들을 기대하는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살게 하였다. 그리고 희망을 주는 이러한 용기는, 자신들의 빈곤한 처지로 인하여 울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고상한 성격이 발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127:3.15 (1400.7) 예수는 바로 당면한 일을 해결하는 데에 그의 모든 마음과 혼과 육체의 힘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힘을 갖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깊은 사고력을 집중시킬 수 있었으며, 여기에 지치지 않는 참을성이 더해져서, 그로 하여금 힘든 필사자 실존을 체험해야 하는 시험을—마치 “보이지 않는 그를 보는 것처럼 살면서”—견디어 내게 해주었다.

제 4 장. 19살 되던 해 (서기 13년)

127:4.1 (1401.1) 이 무렵에, 예수와 마리아의 관계는 많이 좋아졌다. 그녀가 그를 아들로 여기던 생각은 줄어들었고; 점점 더 아이들의 아버지로 여겨지게 되었다. 매일의 생활은 실천적이고 즉각적인 어려움들로 꽉 차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횃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부양하고 기르는 일에 모든 마음을 쏟았다.

127:4.2 (1401.2) 그 해가 시작되었을 때, 예수는 아이들을 키우는 자기 방법—악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오래된 유대인 방식 대신에 오히려 선을 행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에 대하여 어머니가 동의하기까지 충분히 설득하였다. 예수는 자기 가정과 그리고 대중적-가르침 생애에 두루 변함없이 긍정적 형태의 권고를 이용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지, “너희는 이것을 행해야 한다—저것을 행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옛 선조시대 금기(禁忌)에서 유래한 부정적인 형태의 가르침은 결코 이용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금지함으로서 드러나는 악이 강조되는 것을 피하고, 오히려 그것의 성과를 명령함으로서 선한 것을 높이 들어 올렸다. 이 집안에서의 기도 시간은 가족의 복지에 관련되는 어떤 것도 그리고 모든 것을 상의하는 기회였다.

127:4.3 (1401.3) 예수는 남동생과 여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들에게 거의 혹은 전혀 벌을 주지 않고도 그들로 하여금 즉시 그리고 가슴에서 우리나라는 복종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단련을 시작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유다였는데, 그에게는 가정의 행위 규율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벌칙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는 여러 가지 경우에 자주 느꼈다. 세 번의 경우 있어서는, 고의로 가정의 규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유다가 자아-고백한 것에 대해서 그에게 벌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그에 대한 벌칙은 나이든 다른 형제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어 졌고, 벌이 주어지기 전에 유다 자신의 동의도 받았다.

127:4.4 (1401.4) 예수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가장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으며, 또한 모든 그의 행정-관리적 규율에는 신선하게 탄력적인 해석과 적응에서의 개별존재성이 있었고, 이것은 모든 아이들이 자기들의 아버지-형이 행동하는 공의의 영에 매우 감명 받도록 하였다. 그는 결코 임의로 자기 형제들을 단련 시키지 않았으며, 그러한 한결같은 공정성과 개인적 배려는, 가족 모두가 예수를 무척 따르도록 하였다.

127:4.5 (1401.5) 야고보와 시몬은 자신들의 호전성을 그리고 어떤 때에는 성난 친구들을 설득과 무저항의 방법으로 진정시키려는 예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자라났고, 그들의 경우는 꽤 성공적이었지만; 요셉과 유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집에서는 따르면서도 친구들의 공격이 있을 때에는 서슴지 않고 자신들을 방어하였다; 특히 유다가 이러한 가르침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무저항이 가족의 규칙이었던 것은 아니다. 개인적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지 않았다.

127:4.6 (1401.6) 대체로, 아이들 모두는, 특히 여자아이들은 다정한 아버지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로서의 자신들의 문제들을 예수와 의논하려 하였고 그를 신뢰하였다.

127:4.7 (1401.7) 야고보는 온건하고 침착한 젊은이로 자라났지만, 예수처럼 영적 경향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신실한 일꾼인 반면에 훨씬 더 영적이지 못한 마음을 가졌던 요셉보다는, 야고보가 더 우수한 학생이었다. 요셉은 민첩하지 못하였고 다른 아이들보다 지적 차원에도 뒤떨어졌다. 시몬은 마음씨 좋은 아이였지만 너무 심한 망상가였다. 그는 생활에 적응하기까지 너무 오랜 세월이 소요되었으므로 예수와 마리아에게 상당한 근심을

끼쳤다. 그러나 그는 항상 착하고 선한 의도를 가진 아이였다. 유다는 말썽꾼이었다. 그는 가장 높은 이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격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였다. 그는 어머니의 고집과 적극성을 모두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갖고 있었으나, 그녀가 갖고 있는 균형 감각과 사려 깊은 분별력은 거의 소유하지 못하였다.

127:4.8 (1402.1) 미리암은 고상하고 영적인 것을 매우 좋아하는, 온건하고 분별력 있는 딸이었다. 마르다는 생각과 행동이 좀 느렸지만 매우 믿을만하고 유능한 아이였다. 아기 룻은 가족들에게 밝은 빛과 같았다; 생각 없이 말하긴 하였지만, 가장 진실한 가슴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 격인 제일 큰오빠를 거의 경배하다시피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녀를 버릇없이 키우지는 않았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아이였으나, 그 도시에서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가족 안에서 가장 미인인 미리암을 따라가지는 못하였다.

127:4.9 (1402.2)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예수는 안식일에 지키는 실천과 다른 많은 종교적 양상에 관련된 가족 교육들과 격식들을 많이 자유화하고 변경시켰으며, 마리아는

이러한 변화에 진심으로 동의했다. 이 무렵에 예수는 그 집안의 확고부동한 가장이 되어 있었다.

127:4.10 (1402.3) 그 해에 유다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예수는 그 경비를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하프를 팔아야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가 여가를 즐기던 마지막 남은 도구가 사라졌다. 그는 마음이 지치고 몸이 피로했을 때에는 하프 연주를 매우 즐기곤 했었다. 그러나 자기 하프가 적어도 세금 징수원에게 압수당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았다.

제 5 장. 에즈라의 딸 레베카

127:5.1 (1402.4) 예수는 비록 가난하기는 하였지만, 나사렛에서의 그의 사회적 지위는 손상되지 않았다. 그는 그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 중의 하나였고, 젊은 여인들 대부분은 그에게 깊은 호감을 갖고 있었다. 예수는 건장하고 지성적인 빼어난 남성이었고 영적 영도자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부자 상인 에즈라의 맏딸인 레베카가 이 요셉의 아들을 점점 더 사모하게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사랑을 예수의 동생인 미리암에게 고백하였고, 미리암은 다시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마리아는 대단히 흥분하였다. 이제 그녀는 그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이 된 자기 아들을 잃게 되려는 것일까? 어려운 상황들은 결코 끝이 나지 않는 것일까?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나서 그녀는 결혼이 예수의 장래 사명에 어떤 결과를 미치게 될 것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자주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따금씩, 그녀는 예수가 “약속의 아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곤 했었다. 그녀와 미리암은 이 문제를 놓고 의논을 한 후, 예수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예수는 특별한 운명의 아들이다; 앞으로 위대한 종교적 영도자, 또는 어쩌면 메시아가 될지도 모른다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모든 사실을 레베카에게 직접 털어놓음으로써 그것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127:5.2 (1402.5) 레베카는 주의 깊게 경청하였다; 그러한 사실을 듣고 기쁨에 넘쳤고, 오히려 예수에게 전생(前身)을 제공하면서 그의 영도자관계로서의 사명에 함께 참여하기로 전보다도 더 굳게 결심하였다. 그러한 사람일수록 더욱 신실하고 힘 있는 아내가 필요할 것이라고 (그녀 자신에게) 다짐하였다. 그녀는, 마리아가 반대하는 것은 그 가정의 가장이자 유일한 부양자를 잃게

되는 두려움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해석하였다; 자기 아버지가 이 목수의 아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허락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가 예수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인 도움을 그의 가족에게 기꺼이 제공하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동의를 얻은 후, 레베카는 마리아와 미리암에게 이 문제를 다시 상의하였으며, 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되자, 그녀는 대담하게 예수에게 직접 얘기를 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녀는 자기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기회를 만들었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레베카의 17살 생일 축하연에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다.

127:5.3 (1403.1) 예수는 주의 깊게 그리고 깊이 공감하는 태도로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하였으며, 처음에는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이어서 레베카로부터 직접 들었다. 그는 다정하게 대답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가족을 일으켜야 하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무에는, “인간적인 모든 책임들 중에서 가장 신성한 것—자신의 혈육에 대한 충성심—을 완수 하는 일”에는, 그 어떤 많은 돈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레베카의 아버지는, 가족 헌신에 관한 예수의 말에 매우 감명을 받았고 더 이상 대화에서

물러났다. 그는 단지 자기 부인인 마리아에게, “우리는 그를 사위로 맞이할 수 없을 것이요; 그는 우리에게 너무 과분하오.”라고 상기시켰다.

127:5.4 (1403.2) 그러고 나서, 레베카와의 파란 많은 대화가 시작되었다. 이제까지 예수는 그의 삶에서, 소년과 소녀 또는 청년과 처녀를 거의 구별하지 않고 사귀어 왔었다. 그의 마음은 전적으로 실천적인 세상의 관련사에서의 절박한 문제들과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일에 관련된” 자신의 궁극적 생애에 대해 골몰하게 만드는 깊은 사색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었다; 인간의 결혼으로 극치를 이루는 개인적 사랑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모든 평범한 인간 존재들이 반드시 직면하고 결단을 내려야하는 그러한 또 다른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치게 되었다. 그는 정말로 “모든 면에서 너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127:5.5 (1403.3)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들은 후, 그는 레베카에게 그녀가 보여준 자신에 대한 높은 평가를 진지하게 고마워하면서, 덧붙여 말하였다. “이것은 반드시 내 삶의

모든 세월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활력을 줄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형제같은 배려와 순수한 우정의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면, 그 어떤 여인하고도 자유로이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자기 아버지의 가족을 일으키는 것이며, 그것이 성취되기 전에는 자신은 결혼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 명확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내가 혹시 운명의 아들이라면, 나는 나의 운명이 현시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올 때까지 평생동안 떠맡아야만 할 어떤 책무가 있음을 가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127:5.6 (1403.4) 레베카는 비탄에 잠기게 되었다. 그녀는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고, 나사렛을 떠나자고 아버지에게 끈덕지게 졸랐으며, 그가 마침내 세포리로 이사 가는 것에 동의하게 만들었다. 그 후로 수년 동안, 레베카는 자기에게 청혼하는 많은 남자들에게, 한 가지 대답으로 일관하였다. 그녀는 오직 한 가지 목적—그녀 자신에게도 그러하고,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람이, 살아있는 진리의 선생으로서의 그의 생애를 시작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을 위해서 살고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대중을 위한 수고에서의 사건 많은 나날들
내내 그를 따라 다녔으며,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환호를 받으며 들어간 그날도 그 자리에 (예수의 눈에
띄지 않고) 있었으며, 그녀에게 그리고 수 없이 많은
세상들에게 “온통 사랑으로 가득차고 그리고 만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었던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던 숙명적이고 비극적인 그 날 오후에도 마리아 곁에
있는 “다른 여인들 가운데” 서 있었다.

제 6 장. 그의 20살 되던 해 (서기 14년)

127:6.1 (1403.5) 레베카가 예수에게 품었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나사렛에 소문이 퍼졌고 나중에는 가버나움까지도
알려졌으며, 그리하여, 마치 남자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여인들도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 후에는 다른 훌륭한 여인의 개인적 헌신을
거절해야만 하는 체험을 다시 하지 않았다. 이때를
기점으로, 예수에 대한 인간의 애정은 좀 더 경건하고
경배적인 성질의 것이 되었다. 남자와 여자들 모두는
예수를 헌신적으로 사랑하였고 그의 본체 그대로를
사랑하였으며, 자아-만족을 위해서나 그의 사랑을
소유하기 위한 감정은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예수의 인간적 개인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레베카의 헌신도 화제가 되었다.

127:6.2 (1404.1) 미리암은 레베카의 사랑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또 자기 오빠가 아름다운 한 처녀의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거절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그의 운명의 미래 사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채), 예수를 자기의 이상으로 여기고, 아버지로서 그리고 오빠로서 감동적이고 심오한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였다.

127:6.3 (1404.2) 그들은 도저히 잘 제공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예수는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에 있었던 레베카와의 일을 알고 있는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여행할 것을 권유하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그가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원하고 있었던 것은 나사로와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리아와 마르다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것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족 다음으로 이 세 사람을 가장 사랑하고 있었다.

127:6.4 (1404.3)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면서, 그는 메기도와 안티파트리스와 리다를 경유하여 갔으며, 이 지역의 일부분은 그가 이집트에서 나사렛으로 돌아갔을 때 지나갔던 길이었다. 그는 유월절에 도착할 때까지 4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팔레스타인의 국제적 전쟁터였던 메기도와 그 주변에서 일어났었던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였다.

127:6.5 (1404.4)

예수는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지나가면서, 성전과 모여 있는 방문객들의 무리를 바라보느라 잠시 멈추었을 뿐이었다. 정치적으로 임명되어진 제사장들과 함께, 헤롯이 준공한 이 성전에 대해서, 그는 점점 더 치솟는 특이한 혐오감을 갖고 있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를 만나고 싶었다. 나саро는 예수와 같은 나이였고, 이제는 가장이 되어 있었다; 그가 방문한 당시에는 나사로의 어머니도 이미 돌아가신 후였다. 마르다는 예수보다 한 살 조금 더 많았고 마리아는 그보다 두 살 어렸다. 예수는 세 사람 모두에게 우상화(偶像化)된 이상(理想)이었다.

이번 방문에서, 전통에 대항하여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반항심—예수가 판단하기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잘못 나타내는 예식적 실천 관행에 대한 분개심의 표현—이 발생하였다. 예수가 오고 있는 것을 몰랐던 나사로는, 여리고로 가는 길 아래쪽 가까이에 있는 동네에서 친구들과 유월절을 축하할 준비를 이미 갖추어 놓고 있었다. 그러나 이 때 예수는 그냥 나사로의 집에 남아서 같이 그 축제를 기념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이 없다”고 나사로가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정말로 그러한 유치하고 무의미한 의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긴 시간에 걸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다. 엄숙하고도 강렬한 기도를 마친 후에 그들이 일어나자, 예수는 “우리 민족들 중에서 어두움에 갇혀 있고 유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세가 가르친 대로 자기들의 하느님을 따르게 내버려두자;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생명에 이르는 빛을 본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이르는 흑암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지 말자. 우리 아버지는 바로 그 영원한 사랑이시라는 진리에 대한 지식 속에서 자유를 누리자”라고 말하였다.

127:6.7 (1404.6)

황혼 무렵이 된 저녁에, 이 네 사람은 함께 모여 앉아서, 믿음이 깊은 유대인으로서는 전례가 없는, 유월절 양 없이 지내는 첫 번째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포도주가 이 유월절 식사를 위해 준비되어졌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이것들에 대하여 예수는 "생명의 빵"과 "생명의 물"이라는 말을 붙인 후에 동행자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그들은 방금 받은 가르침을 엄숙하게 준수하며 먹었다. 그 때부터, 그가 베다니에 방문할 때마다 이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그녀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차차로 그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유월절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관념은 자기 가족들에게 소개할 의도가 없음을 예수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었을 때, 그녀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해를 거듭하면서, 집에 있는 동생들과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다.

127:6.8 (1404.7)

결혼문제에 대하여 마리아가 예수와 긴 대화를 나눈 것은 바로 그해였다. 그녀는, 만약 가족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다면 결혼을 하겠느냐고 그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았다. 예수는 그녀에게, 당면한 의무감으로 인해 결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해 보지 못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게 될 것 같다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였고; 그러한 일들은 “나의 때”, “나의 아버지의 일을 시작해야만 하는” 되는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자기가 아이들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되지 않기로 이미 마음속에 작정해 놓았기 때문에, 인간의 결혼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았다.

127:6.9 (1405.1) 그 해에 예수는 자신의 필사자 그리고 신성한 본성을 하나의 단순하고 효력적인 인간 개별존재성으로 좀 더 엮어 가는 임무를 다시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는 도덕적인 수준과 영적인 압득 방면에서 더 계속 성장하였다.

127:6.10 (1405.2) 나사렛에 있는 그들의 모든 재산들(집을 제외한)이 없어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가버나움에 부분으로 있던 재산의 지분을 팔아서 약간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것이 요셉이 남기고 간 전

재산의 마지막이었다. 가버나움에서의 이 부동산 거래는 세베대라는 배를 만드는 사람과 이루어졌다.

127:6.11 (1405.3) 요셉이 그 해에 회당학교를 졸업해서 집에 있는 목공소의 작은 작업대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소진되었지만, 이제 그들 중에서 세 사람이 규칙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난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보였다.

127:6.12 (1405.4) 예수는 빠른 속도로 한 사람의 어린, 청년이 아닌 어른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을 배웠다. 낙심되는 경우를 당하였을 때 어떻게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는지를 알았다. 자신이 세운 계획이 어긋나고 목적이 현실적으로 무산되었을 경우에도 용기 있게 견디어 나갈 수 있었다. 불공정을 당하였을 때에도 공정하고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이 땅에서의 실존의 실천적인 요구들에 자신의 영적 삶의 이상들을,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지를 배워 나갔다. 그는 당장 시급한 필요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동시에 보다 높고 먼 장래의 이상주의적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는 방법도 계속 배웠다. 그는 인간 상황의 평범한

요구들에게 자신의 큰 뜻을 맞추어 가는 기법을 꾸준히 연마하고 있었다. 그는 영적 충동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질적인 성취에 대한 방향을 바꾸는 기능구조를 거의 완벽하게 터득하였다. 그는 이 세상에서의 실존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늘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서서히 배워갔다. 그의 육신적인 가족에 속한 아이들을 보살피고 지도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동안,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궁극적인 안내에 더욱 더 의존하였다. 그는 실패의 문턱으로부터 기술적으로 승리를 이끌어 내는 데에 숙달되게 되었다; 시간의 곤경으로부터 영원한 세계의 승리로 변환하는 방법을 계속 배워나갔다.

127:6.13 (1405.5) 그리하여, 해를 거듭해 가면서, 시간과 공간의 세계들에 살고 있는 필사 육신들이 영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나사렛의 젊은이는 일생을 계속 체험해 나갔다. 그는 유란시아에서 충분하고, 대표적이고, 그리고 충만한 일생을 살았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그의 창조체들의 첫 번째 일생, 육신 속에서의 짧고도 격렬한 일생을 통과하면서 겪은 체험이 원숙해진 상태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체험 전체는 우주 주권자에게 영원히

간직되었다. 그는 우리를 납득하는 형제이며, 동정심 많은 친구이고, 체험이 많은 주권자이며, 자비로운 아버지다.

127:6.14 (1405.6) 그는 어린아이 때에 광대한 지식을 쌓았다; 청년기 때에는 이 정보를 간추리고 분류하고 서로 상관관계 시켰다; 이제 영역의 어른으로서, 네바돈 전체 우주를 통하여, 이 세상과 모든 다른 거주 구체들 속에 사는 그의 동료 필사자들을 위하여, 그가 장차 가르치고 돌보고 봉사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로 이러한 정신적인 소유물들을 조직화하기 시작하였다.

127:6.15 (1405.7) 이 세상의 아기로 태어난 후에, 그는 어린아이로서의 삶을 살았고, 소년기와 청년기 단계를 지나왔으며; 그는 이제는 삶의 풍부한 체험을 소유하고, 인간 본성에 대한 충분한 납득과 그것의 나약함에 대한 많은 동정심을 가진, 충만한 어른이 되는 문턱에 와 있었다. 그는 모든 세대와 모든 단계의 필사 창조체들을 자신의 파라다이스 아버지께 계시하는 신성한 기술에 있어서 숙련되어 가고 있었다.

127:6.16 (1406.1) 그리고 이제는 충만하게-성장한 한 사람으로서—영역의 한 어른—, 그는 필사자들에게는

하느님을 계시하고, 그리고 필사자들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자신의 최종 사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 128 편 예수의 성년기 초기

128:0.1 (1407.1) 나사렛 예수는 성년기 일생을 시작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정상적이고 평범한 인간 일생을 계속 살았었다. 예수는 다른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이 이 세상에 왔고; 자기 부모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그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일곱 번째의 마지막 증여, 필사 육체를 입고 태어나기 위한 행성으로서 이 특정한 세상을 골랐던 것뿐이었고, 다만 하나의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하여 이 세상으로 태어났으며, 이 세상 혹은 이와 비슷한 다른 세계들 속에 살고 있는 필사자들이 겪는 것과 똑같이 주변 환경의 변천과 씨름하면서 한 아이로 자라갔던 것이다.

128:0.2 (1407.2) 유란시아에서 행해진 미가엘 증여에는 다음과 같은 이중적인 목적이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기 바란다:

128:0.3 (1407.3) 1. 필사자의 육체 속에서 한 창조체 인간의 전 일생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것, 네바돈에서 그의 주권을 성취하는 것.

128:0.4 (1407.4) 2. 시간과 공간의 세계들에 있는 필사자 거주자들에게 우주 아버지를 계시하고 우주 아버지를 더욱 잘 납득하도록 동일한 이 필사자들을 좀 더 효력 있게 인도하는 것.

128:0.5 (1407.5) 다른 모든 창조체 은총들과 우주 이점(利點)들은, 필사자 증여의 이들 주요 목적들에게는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2차적인 것들이었다.

제 1 장. 21살 되던 해 (서기 15년)

128:1.1 (1407.4) 어른이 되면서부터, 예수는 열정적으로 그리고 충분한 자아-의식을 갖고, 지능 창조체들 중에서 가장 낮은 형태인 자신의 일생에 대한 지식을 충분하게 습득하는 체험을 완성하여, 그로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충분하게 그의 자아-창조된 우주에 대한 분별불가적 주권을 획득하게 되는 과업을 시작하였다. 그는 자신의 이원적(二元的) 본성을 충분하게 깨닫기 위한 이 엄청난 임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효과적으로 이

두 가지 본성을 하나—나사렛 예수—로 병합시켰던 것이다.

128:1.2 (1407.5) 요셉의 아들 여호수아는 자기가 한 사람이고, 필사 사람이며, 여자에게서 태어났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자신의 첫 번째 칭호로 사람의 아들을 선택했던 것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는 정말 피와 살을 가진 하나의 인간이었으며, 그리고 그는 지금도 통치 권한을 가지고 우주의 운명을 주관하면서, 스스로 획득하였던 수많은 호칭들 중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우주 아버지의 창조의 말씀—창조자 아들—이 “육신이 되어 유란시아 세계의 한 사람으로 거하였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다. 그는 노동을 하였고 피곤함을 느꼈으며 휴식을 취했고 잠을 잤다. 그는 배고픔을 알았고 음식을 취함으로써 그러한 배고픔을 이길 수 있었다; 그는 갈증을 느꼈고 물을 마심으로써 그 갈증을 해결하였다. 그는 인간의 느낌과 감정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체험하였다; “너희와 똑같이, 모든 것에 대해 시험을 받았고” 고통을 겪었으며 죽음을 체험하였다.

128:1.3 (1407.6) 그는 영역에 있는 다른 필사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지식을 얻었고, 체험을 습득하였으며, 이것들을 지혜 속에 병합시켰다. 그는 세례를 받을 때까지, 어떤 초자연적 힘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요셉과 마리아의 한 아들로 증여된 자신의 인간 자질이 아닌 그 어떤 매개자도 동원하지 않았다.

128:1.4 (1408.1) 그는 자신이 인간-이전 실존으로서의 속성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비웠다. 그는 대중을 위한 일들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사람들과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자아-제한시켰다. 그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사람이었던 것이다.

128:1.5 (1408.2) 다음과 같은 사실은 언제까지나 빛나는 진리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할 수 있는 높은 통치자가 계시다. 우리에게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유혹을 당하신 주권자가 계시는데, 죄는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직접 고통을 받고 시험 당하였기 때문에, 혼란되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충분히 납득하고 보살피신다.

128:1.6 (1408.3) 나사렛 목수는 이제 자신 앞에 놓인 임무를 충분히 납득하였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길을 따라서 자신의 인간 일생을 살기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부분적인 면들을 고려할 때, 그는 참으로 자신이 창조한 필사자 창조체들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기도 하였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니, 그는 하느님의 속성을 갖춘 존재이시고 하느님과 동등 되게 생각함이 당연하지만 자신을 비워서 창조체의 형상을 취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났다. 그리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128:1.7 (1408.4) 그는 인간 가족을 이루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자신의 필사자 일생을 살았으며, 그는 "육체 속에 있던 시절 동안 모든 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분께 그토록 자주 기도와 탄원을 드렸고, 심지어는 통렬한 감정과 눈물로 하였으며, 그가 믿음을 가졌기에 그의 기도는 효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모든 면에서 자기 형제들과 똑같은 처지에서 처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롭고도 납득하는, 주권을 가진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128:1.8 (1408.5) 그는 자신의 인간 본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은 적이 없었고; 그것은 자아-명백하게 그리고 항상 그의 의식 안에 존재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신성한 본성에 있어서는, 의심과 추측의 여지가 항상 남아 있었으며, 적어도 그가 세례를 받는 순간까지는 그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자신의 신성에 대한 자아-실현은 아주 천천히 이루어졌고, 또한 인간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진화적인 계시였다. 신성에 대한 이러한 계시와 자아-실현은, 그가 13세에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의 인간 실존에서의 첫 번째로 발생한 초자연적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자신의 신성한 본성에서의 자아-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이 체험은 그가 육체로 있을 때 두 번째 초자연적 체험,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발생했던 에피소드, 곧 사명활동과 가르침의 그의 공생애의 시작을 표시했던 사건, 그 에피소드가 있었을 때 완성되었다.

128:1.9 (1408.6) 하늘로부터의 이 두 가지 방문들, 첫 번째는 13살 되던 해에 있었고 두 번째는 그가 세례를 받는 날에 발생했던 이 두 사건 중간에는, 인간의 몸을 입은 창조자 아들에게 어떤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베들레헴의 아기 때나 소년기와 청년기 그리고 나사렛의 한 어른이 되었을 때, 그가 실체 안에서 항상 육신화된 우주의 창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날까지, 자신의 인간 일생의 삶에서, 한 번도 천상의 개인성들의 안내를 받지 않았으며, 다만 자신의 수호 세라핌천사의 안내는 예외였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128:1.10 (1408.7) 그렇지만, 그가 육체를 입고 있던 그 모든 나날 동안, 그는 진실로 성스러운 존재였다. 그는 실재적으로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한 창조자 아들이었다. 일단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였을 때, 뒤이어 일어나는 주권 획득에서의 그의 순전히 필사자로서의 체험이 절차에 따른 완성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대중 앞에서 시인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단호히 선언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며 처음과 끝이다.” 그는 훗날 그에게 붙여졌던 다음과 같은 이름들, 영광의 주님, 우주의 통치자, 모든 창조의 주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만유의 주님, 우리 주님 우리 하느님, 우리와 함께 하는

하느님, 모든 세계들과 모든 이름들 위에 이름을 가지신 분,
우주 전능자, 이 창조계의 우주 마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을 감추고 계신 분, 만유를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함,
영원한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 만유 이전에 계셨고 만유
속에 계신 분, 하늘들과 땅의 창조자, 우주의 유지자,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참 목자,
세상의 해방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대장이라는 명칭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표하지 않았다.

128:1.11 (1409.1) 그가 그의 순수하게 인간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인간성으로, 그리고 인간성을 위한, 그리고 이 땅의
인간성과 다른 모든 세계의 인간성에 대한 신성의
사명활동을 그가 자아-의식하는 후기로 접어들게 된
이후가 되었어도, 그에게 적용된 이 칭호들 중 어떤 것도
전혀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에게 적용된 한
가지 이름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는데: 한 번은 그가
임마누엘이라고 불렸을 때, 그는 단지 “나는 그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형님의 이름이다.”라고 대답하였다.

128:1.12 (1409.2)

땅에서의 더욱 커진 일생 안으로 그의 창발이 나타난 이후에도, 예수는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온순하게 따랐다.

128:1.13 (1409.3)

세례를 받은 뒤에도, 그는 자기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과 기꺼이 자기를 따르려는 자들에게 자신을 경배하도록 허락할만한 그 어떤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 그가 가난과 씨름하고 그의 가족의 생활의 필수품을 마련하려고 손으로 애써 일하는 동안에도,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었다는 그의 자각은 커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하늘들과 그리고 지금 자신이 인간 실존으로서 살아가는 바로 이 땅을 만든 조물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거대한 우주에 두루 천상의 존재들로 이루어진 무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나사렛 사람이 자신들이 사랑하는 주권자이며 창조자-아버지임을 알고 있었다. 심오한 긴장감이 이들 여러 해 동안 계속 네바돈 우주를 휩쓸고 있었다; 모든 천상의 눈들이 유란시아의 팔레스타인에 줄곧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128:1.14 (1409.4)

그 해에, 예수는 둘째 동생 요셉과 함께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수는 헌납식을 위해 야고보를 성전으로 데리고 갔었기 때문에, 요셉을 데려가는 것도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는 가족을 돌보는데 있어서, 편애하는 듯한 태도를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는, 항상 다니던 요단 계곡의 길을 따라 갔으나, 나사렛으로 돌아올 때에는 아마투스를 지나가는 요단 지역의 동쪽 길을 택하였다. 요단을 내려가는 동안 예수는 요셉에게 유대의 역사를 말해 주었고, 돌아오는 길에는 전통적으로 요단 동쪽에 거주하고 있는 루벤, 갓, 그리고 길르앗 등으로 불리는 족속들이 겪은 체험에 관해서 이야기하였다.

128:1.15 (1409.5)

요셉은 예수에게 그의 일생 임무에 관해서 유도적인 질문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이 질문들 대부분에 대해서, 예수는 단지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어쨌든, 이 친밀한 대화 속에서 많은 말들이 흘러 나왔었는데, 요셉은 많은 사건들이 벌어진 여러 해 동안 그것들을 기억하였다.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이 기념 축제들에 참석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했던 것처럼,

요셉을 데리고 베다니의 세 친구와 함께 그 유월절을 보냈다.

제 2 장. 22살 되던 해 (서기 16년)

^{128:2.1 (1409.6)} 그 해는 예수의 형제와 자매들이 시험과 고난들을 맞이했던 여러 해들 중의 한 해였으며, 이번에는 특별히 청소년기의 문제들 그리고 재조절들로 인한 것이었다. 예수의 형제와 자매들은 일곱 살에서 열여덟 살까지 걸쳐 있었으며, 그는 그들이 지적이고 정서적인 삶을 새롭게 자각하고 거기에 자신들을 맞추어 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느라고 분주하게 보냈다. 청소년기의 그 문제들이 그의 어린 형제자매들의 삶 안에서 현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씨름해야 하였다.

^{128:2.2 (1410.1)} 그 해에 시몬은 학교를 졸업하였고, 예수의 오랜 친구이자 언제나 그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석공 야곱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였다. 몇 차례의 가족회의 끝에, 모든 형제들이 목수가 된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직업을 다양화시킴으로서 건물 전체를 짓는 여러 개의 청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들 세

명이 모두 목수 일에 매달리게 되면서, 모두가 바쁘게 일할 만큼의 충분한 일거리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128:2.3 (1410.2) 그 해에 예수는 집 마무리 작업과 장롱을 짜는 일을 계속했으나, 카라반들을 위한 수리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와 번갈아 그 가게를 보기 시작하였다. 그 해 후반기에, 나사렛에서 목수 일이 별로 없어지게 되자, 예수는 야고보에게 수리점을 맡겼고, 요셉에게는 집안 일을 맡기면서, 자신은 세포리로 가서 대장간 일을 하였다. 그는 여섯 달 동안 쇳덩이들과 씨름하면서 모루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술을 익히게 되었다.

128:2.4 (1410.3) 세포리에서 새 직업을 갖기 전에, 예수는 정기적으로 하는 가족회의를 열었고, 18세가 막 지난 야고보를 가족의 활동하는 가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진심 어린 지지와 협조를 약속하면서 식구들 각자가 그에게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하게 하였다. 그 날부터 야고보는 가족에 대한 재정을 전담하게 되었고, 예수는 자신의 주급을 야고보에게 보냈다. 그리고 그 후로 다시는 그 권한을 야고보로부터 돌려받지 않았다.

세포리에서 일하는 동안, 필요하다면 매일 밤 집으로 걸어올 수도 있었지만, 그는 날씨가 다른 이유들을 들어서 의도적으로 떠나 있었는데, 그렇게 한 참된 동기는 야고보와 요셉이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감을 갖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그의 의도 때문이었다. 그는 가족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매주 안식일마다 예수는 나사렛으로 돌아왔으며, 때때로 새로운 계획을 실천하거나 충고 또는 어떤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주중에도 집에 들렀다.

128:2.5 (1410.4) 세포리에서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예수는 삶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갖는 관점을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잘 제공받았다. 그는 이방인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살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자 하였고 그들의 생활 습관과 이방인의 마음을 연구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128:2.6 (1410.5) 헤롯 안티파스의 고향(故郷)인 이 도시(都市)의 도덕적 수준이 카라반들의 도시인 나사렛보다도 훨씬

났았기 때문에, 예수는 6개월 동안 세포리에 머문 뒤 나사렛으로 돌아갈 명분을 찾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가 함께 일했던 그 집단들은 세포리 그리고 티베리아스의 새 도시 두 곳에서 벌어진 공공 사업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예수는 헤롯 안티파스의 감독 아래에 고용되는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에, 그가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게 느껴지는 몇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었다. 그가 (나사렛에 있는) 수리점으로 되돌아왔을 때, 다시는 가족들의 관련사에 대해서 개인적 지도를 하지 않았다. 그는 가게에서 야고보와 관계적-연합하여 일하였고, 가능한 한 그가 집안의 전반적인 감독을 계속하도록 허락하였다. 집안 살림을 꾸려가는 야고보의 경영과 가게 예산에서의 그의 관리-행정은 전혀 간섭받지 않았다.

128:2.7 (1410.6) 예수가 자기 가족들의 관련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결국 생겨나는 사퇴를 위한 길을 준비한 것은 현명하고도 사려 깊은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야고보가 가족의 활동하는 가장으로서 2년간의 체험을 쌓은 뒤에—그리고 그가(야고보) 결혼하기 꼭 2년

전에—, 요셉이 그 뒤를 이어서 가족 전체의 재정을 책임지게 되었고 가정의 제반 경영을 맡게 되었다.

제 3 장. 23살 되던 해 (서기 17년)

^{128:3.1 (1411.1)} 그 해에는 네 명이 일을 하였기 때문이, 재정적인 압박이 조금 이완되었다. 미리암은 우유와 버터를 팔아서 제법 돈을 벌었고, 마르다는 능숙하게 직조(織造)할 수 있게 되었다. 수리점의 전체 구입비용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지불되었다. 그런 상황 중에 예수는 3주 동안 일을 쉬면서 시몬을 데리고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으며, 이것은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난 후 그가 일상적인 힘든 일로부터 떠나 있었던 가장 긴 기간이었다.

^{128:3.2 (1411.2)} 그들은 데카폴리스를 경유하여 펠라, 게라사, 필라델피아, 헤스본, 그리고 여리고 등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올 때에는 해안선을 따라왔는데, 리다, 요파, 케자리아 등을 지난 후 갈멜산을 돌아 프톨레마이스를 거쳐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이 여행을 통해 예수는 예루살렘 관할의 팔레스타인 북부 전체 지역을 잘 알게 되었다.

128:3.3 (1411.3) 필라델피아에서, 예수와 시몬은 다마스쿠스에서 온 한 상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이 나사렛 청년들을 매우 좋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숙소에 함께 머물기를 간청하였다. 그리하여 시몬이 성전에 있는 동안, 예수는 고등-교육을 받고 세계 각처의 관련사들로 많은 여행을 한 그 상인과 함께 시간 이야기를 하였다. 이 상인은 4천 마리의 카라반 낙타를 소유하고 있었다; 로마 권역 전체와 거래를 하고 있었고, 그 때에도 로마로 가는 길이었다. 그가 예수에게 다마스쿠스에 와서 동방의 상품을 수입하는 일을 하자고 제의하였지만, 예수는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지금 당장 멀리 떠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먼 곳에 있는 이 도시들과 더 멀리 극서(極西) 그리고 극동(極東)에 있는 나라들, 카라반 여행객들과 지휘-안내자들로부터 자주 들어왔던 나라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였다.

128:3.4 (1411.4) 시몬은 예루살렘에 온 것을 매우 좋아하였다. 그는 율법의 새 아들들에 대한 유월절 헌납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식 시민으로 받아들여졌다. 시몬이 유월절 의식에 참가하는 동안 예수는 방문객들의 군중 속에 섞여

있었고, 여러 이방인 개종자들과 흥미로운 많은 개인적 대화를 나누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128:3.5 (1411.5) 아마도 이 모든 만남들 중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스테반이라는 한 젊은 그리스인을 만난 일이었을 것이다. 이 젊은이는 예루살렘에 처음 방문했으며, 유월절 주간의 목요일 오후에 우연히 예수를 만났다. 그들이 아스모니아의 궁전을 구경하면서 함께 걷는 동안, 예수는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했고 그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삶의 방식과 참된 하느님 그리고 자신의 경배 방법에 대해서 네 시간 동안이나 토론하게 되었다. 스테반은 예수가 하는 말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고; 그의 말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128:3.6 (1411.6)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자가 된 바로 그 스테반이었고 그리고 이 초기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가 보여준 그의 대담성은 성난 유대인들이 그의 존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결과를 낳았다. 새로운 복음에 대하여 자기 견해를 주장함에 있어서 스테반이 비상하게 대담하였던 것은, 이전에 가졌던 예수와의 직접적인 만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스테반은,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자신이 나중에 주장하게 된 그 사람이 바로, 15년 전에 자기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어느 갈릴리 남자였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그는 얼마 못 가서 그를 위해 죽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새롭게 진화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 스테반이 유대인의 성전과 그 전통적 실천 관행에 대한 공격의 대가(代價)로 자기 생명을 바쳤을 때, 그곳에는 타루수스의 시민이자 사울이라 불리는 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사울이 이 그리스인이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그런 식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가슴 속에서 어떤 감정이 솟아 올랐고, 결국에는 그것이 그를 스테반이 목숨을 바친 그 동기를 신봉하도록 이끌었다; 후일에 그는 적극적이고 굴하지 않는 바울, 비록 유일하게 홀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교의 설립자, 철학자가 되었다.

128:3.7 (1412.1) 유월절 주간이 끝난 일요일에, 시몬과 예수는 나사렛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시몬은 예수가 이 여행에서 자기에게 가르친 것들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전에도 항상 예수를 사랑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의 아버지-형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꼈다. 그들은

마을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길가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가슴이 통하는 대화들을 많이 나누었다. 그들은 목요일 정오에 집에 도착하였고 시몬은 늦은 밤까지 자신의 체험담을 가족들에게 늘어놓았다.

128:3.8 (1412.2) 마리아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낯선 방문자, 특히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보냈다는 시몬의 이야기를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예수의 가족들은 사람들에게 대한 그의 관심,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려 하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아내려는 강한 호기심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

128:3.9 (1412.3) 나사렛의 가족은 그들의 눈앞에 닥친 인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점점 더 몰두하였으며, 예수의 장래 임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고, 예수 자신도 자기의 장래 임무에 대해 어떤 말도 거의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약속의 아이라는 것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떤 신성한 사명을 성취할 것이라는 관념을 서서히 포기해 나갔지만, 자기가 예수를 낳기 전에 가브리엘이 찾아 왔던 일을 상기할 때에는 그녀의 신앙이 때때로 되살아났다.

제 4 장. 다마스커스 에피소드

^{128:4.1 (1412.4)} 예수는 그 해 마지막 4개월을 다마스커스에서 보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필라델피아에서 처음 만났던 그 상인의 손님으로 초청되어 있었다. 이 상인의 대리인이 나사렛을 지나가다가 예수를 찾아내어 그를 다마스커스에까지 수행하였다. 유대인의 피가 섞인 이 상인은, 다마스커스에 종교적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큰돈을 기부하겠다고 제안해왔다. 그는 알렉산드리아를 압도할만한 교육 중심지를 건립할 계획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수에게, 새로운 이 구체적인 투사의 책임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전 세계의 교육 중심지들을 돌아보는 긴 여행을 즉시 시작하라고 제안하였다. 이것은 예수가 자신의 순수한 인간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딪친 가장 큰 유혹들 중의 하나였다.

^{128:4.2 (1412.5)} 얼마 안 있어서, 이 상인은 새로 계획된 학교를 지원하기로 동의한 12명의 상인들과 물주들로 구성된 집단을 예수 앞에 불러 모았다. 예수는 제시된 학교 계획에 대해 깊은 관심을 현시하였고 그것을 조직하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 투사에 도움을 주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엇인지 말해 줄 수는 없지만, 자신에게 이미 맡겨진 보다

중요한 다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야심에 찬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신의 의사를 계속 표명하였다. 하지만 그를 후원하려는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고, 좋은 조건으로 통역하는 일을 맡기면서 예수를 자기 집에 고용하였으며, 그러는 동안에 그는 부인과 아들들 그리고 딸들까지 동원하여, 제안된 지위를 예수가 받아들일도록 설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승낙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땅에서의 자기 사명이 교육 기관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적어도 '인간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통제 아래 자신을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28:4.3 (1412.6)} 자신의 영도자관계를 실증한 뒤에도 예루살렘 종교 영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했던 그였지만, 다마스쿠스의 상인들과 물주(物主)들에게서는 최고의 선생으로 인정받고 환호를 받았으며, 이 모든 일은 그가 눈에 띄지도 않고 이름도 없는 나사렛의 목수였을 때 일어났다.

^{128:4.4 (1412.7)} 그는 이런 제안을 받은 데 대하여 자신의 가족에게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그 해 말경에, 그는

마치 자기가 다마스쿠스 친구들로부터 귀에 솔깃한 제안으로 유혹을 당한 적이 전혀 없었던 사람처럼, 나사렛에 돌아와 매일의 업무에 임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의 이 사람들은, 전에 자신들의 연관된 재력으로 마련해주려고 하였던 영광을 단호하게 거절하였던 나사렛의 목수를, 훗날 모든 유대 민족을 뒤엎어 놓았던 그 가버나움 사람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였다.

128:4.5 (1413.1) 예수는 자신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가장 현명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분리시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 사건들이 단일 개별존재의 행위라고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없게 하였다. 예수는 그 뒤에, 알렉산드리아에 버금가는 학교를 다마스쿠스에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한 어느 이상한 갈릴리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

128:4.6 (1413.2) 그가 이 세상에서 체험하였던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분산시키고자 하였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한 가지 목적은, 자신에게 다양하고 화려한 생애가 구축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가 삶 속에서

실천하였고 가르쳤던 진리를 후세의 사람들이 순종하는 대신에, 오히려 스승을 숭배해 버리는 경향으로 나가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으로부터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하나의 인간적 성공담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예수는 자기가 세상에 선포하는 왕국 복음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자기에 관한 하나의 종교를 형성시키려는 유혹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잘 빠진다는 점을 아주 일찍부터 인식하였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대신에 스승을 높이 내세우려는 인간 경향에 도움을 줄만한 모든 일들을 억제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128:4.7 (1413.3) 이와 같은 동기 때문에, 그가 그의 땅에서의 다채로운 일생에서의 다양한 신(新)시대동안 자신이 많은 다른 명칭으로 알려지도록 내버려두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직한 신념을 떠나서 그를 믿도록 하는, 어떤 과도한 영향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과도하게 또는 부당하게 억이용하는 것을 항상 거부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만일 자신의 가르침에서

나타나는 영적 실체들에 대해 진심으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들이 자기를 믿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128:4.8 (1413.4)} 그 해 말에, 나사렛 가정은 부드럽게 잘 돌아갔다. 아이들은 성숙해가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가 집에서 멀어지는 것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 예수는 자신의 수입이 가족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야고보에게 계속 보내 주었으며, 자신의 즉각적인 개인적 비용으로 급히 필요한 작은 부분만 남겨놓았다.

^{128:4.9 (1413.5)}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땅에 있는 하느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는 그 지역의 다른 한 개별존재와 아주 똑같이,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아주 평범한 인간으로 되어 가는 듯이 보였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펼쳐져야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의해 정해진 것이었다.

제 5 장. 24살 되던 해 (서기 18년)

^{128:5.1 (1413.6)} 그 해는 예수가 가족 부양의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진 첫 해였다. 야고보는 예수의 조언과 경제적 도움을 받아, 가게를 매우 성공적으로 꾸려나갔다.

128:5.2 (1413.7)

그 해 유월절 다음 주간에, 한 무리의 알렉산드리아 유대인과 예수가 팔레스타인 해변 가의 어떤 장소에서 연중(年中)에 만날 수 있는 모임을 주선하기 위하여,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어떤 젊은이가 나사렛으로 왔다. 그리하여 이 회합은 6월 중순에 열렸으며, 그 때 예수는 다섯 명의 뛰어난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을 만나기 위해 케자리아로 갔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에서 그가 종교적 선생이 되어달라고 간청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본부 회당의 카잔(선생) 보좌관 지위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다.

128:5.3 (1414.1)

이 위원회의 대변인은 알렉산드리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유대인 문화의 본부가 될 운명임을 예수에게 설명하였다; 유대인 관련사들의 헬레니즘 성향이 바빌로니아 학파를 실질적으로 훨씬 앞서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을 통틀어 반란의 불길한 소문이 일고 있음을 예수에게 상기시켰으며, 만약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어떤 봉기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국가적인 자살 행위이며, 로마의 군대가 삼 개월 안에 그 반란을 진압시킬 것이고,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성전은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리라는 확신을 피력하였다.

128:5.4 (1414.2) 예수는 그들이 하는 말을 모두 경청하였고, 그들의 신임에 감사하였지만, 알렉산드리아에 가는 것은 사양하였는데, 그 대체적인 요지는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에게 수여하려는 명예에 대해 그가 보인 명백한 무관심에 상당히 당황하였다. 그들은 예수와 헤어지기에 앞서서, 알렉산드리아 친구들의 존경의 표시와 또한 케자리아에까지 자신들을 만나러 온 시간과 비용의 대가로써 그에게 돈주머니를 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그 돈도 마찬가지로 사양하면서, “요셉의 집안은 의연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강한 팔을 갖고 있고 또 내 형제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빵을 먹을 수는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128:5.5 (1414.3) 이집트에서 온 그의 친구들은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몇 년 뒤 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파문을 일으키는, 가버나움에서 배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소문들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바로 베들레헴의 아기로

자라난 그 사람이며 알렉산드리아의 위대한 선생으로
오라는 초청을 단호히 거절한 바로 그 이상한 갈릴리
사람이라고 짐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128:5.6 (1414.4) 예수는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그 해의 나머지
6개월은, 그의 모든 생애에서 가장 평온무사하게 보낸
기간이었다. 그는 극복해야 할 난관들과 풀어야 할
문제들의 일상의 일로부터 벗어난, 이 짧은 기간의 휴식을
보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자기 아버지와 많은 교제를
가졌고 자신의 인간 마음을 제어하는 것에도 상당히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

128:5.7 (1414.5)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세계들에서의 인간의
관련사들은 그리 오랫동안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
12월에, 야고보는 예수와 개인적인 면담을 하면서, 자신이
나사렛의 젊은 여인 에스더와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하였고, 조건이 허락한다면 그들은 적당한 시기에
결혼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예수는 요셉이 곧 18세가
되며, 그 때는 가족의 활동하는 가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에게도 좋은 체험이 되리라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래서 예수는 야고보에게 2년 후에

결혼하도록 승낙했으며, 야고보는 예수가 제안했던 대로 요셉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 그를 훈련시켰다.

128:5.8 (1414.6) 그러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결혼이 줄을 잇게 되었다. 야고보가 자신의 결혼에 대한 예수의 동의를 받아내자, 미리암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계획을 아버지 격인 오빠에게 털어놓았다. 한때 예수의 자아-임명한 투사였던 젊은 석공 야곱이 이제는 야고보와 요셉의 동반자가 되었는데, 그는 오랫동안 미리암을 아내로 얻고 싶어 하였다. 미리암이 그녀의 계획을 예수에게 말하자, 예수는 야곱이 자신에게 그녀에 대한 공식적인 청혼을 하여야만 한다고 지도하였으며, 동생 마르다가 장녀의 역할을 충분히 맡을 수 있다고 그녀가 느끼게 되면 바로 결혼을 시켜 줄 것을 약속하였다.

128:5.9 (1414.7) 집에 있을 때에는, 예수는 일주일에 세 번씩 야간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였으며,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자주 성서를 읽었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아이들을 가르쳤고,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나사렛의 자격을 갖춘 존중받는 시민으로서 자신을 처신하였다.

제 6 장. 25살 되던 해 (서기 19년)

^{128:6.1 (1415.1)} 이 해에는 나사렛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출발하였고, 마르다가 롯을 돌보아야만 하는 특정한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아이들의 정규 학교 과정의 완결을 목격하였다.

^{128:6.2 (1415.2)} 예수는 아담 이후로 지상에 나타난 가장 건장하고 세련된 표본이 될 만한 인간들 중의 하나였다. 그의 신체적 발달은 최상의 상태였다. 그의 마음은 활동적이고 예리하며 꿰뚫는 정신력—그와 동시대의 평균적인 마음 상태와 비교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비율로 발전된 것이었다—을 지녔고, 그의 영은 인간 견지에서 볼 때 참으로 신성한 상태였다.

^{128:6.3 (1415.3)} 가정의 재정 상태는 요셉의 유산이 사라진 이래로 최상 수준에 이르렀다. 카라반들을 위한 수리점에 대하여 마지막 분할금을 지불하였고, 그들은 이제 아무에게도 빚이 없었으며, 근래 몇 년 동안 처음으로 여유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 예수는 다른 남동생들에게 그들의 첫 유월절

의식을 위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므로, 유다(그는 막 회당 학교를 졸업했다)의 경우에도 첫 성전 방문을 위해 그를 데리고 가기로 결정하였다.

128:6.4 (1415.4) 그들은 요단 계곡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돌아올 때에도 같은 길을 택하였으며, 그것은 예수가 어린 동생을 데리고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면 곤란한 일이 생길까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미 유다는 나사렛에서 사소한 문제들을 여러 차례 일으켰었는데, 그것은 유다가 조급한 기질에다 강렬한 애국적 정서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28:6.5 (1415.5) 그들은 시간에 늦지 않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먼저 성전을 방문하고 있었으며, 바로 그 광경은 유다의 혼 깊은 곳까지 자극하였고 흥분을 느끼게 하였는데, 그때 그들은 우연히 베다니의 나사로를 만나게 되었다. 예수가 나사로와 이야기를 나누며 유월절 축제를 함께 나누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동안, 유다는 그들 모두에게 실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 로마 근위병이 서 있었는데, 그는 지나가는 한 유대인 소녀에게 부적절한

촌평을 하였다. 유다는 불같은 분개심으로 상기되어 참지 못하고 그 병사가 들릴만한 거리에서 직접적으로 그러한 부적절성으로 인한 그의 울분을 터트렸다. 당시 로마 군대는 유대인들의 사소한 비방에도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근위병은 즉시 유다를 체포하였다. 이것은 그 어린 애국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으며, 예수가 경고의 눈빛으로 그에게 주의를 주기도 전에, 그는 이미 로마에 대한 적개심에 찬 말을 한바탕 떠들어 버려서 일을 악화시켰다. 유다는 그 즉시로 집단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예수가 보호자로 동행하였다.

128:6.6 (1415.6) 예수는 유다를 위해서 바로, 아니면 적어도 그 날 저녁 유월절 축제에 참석하기 전에, 호소를 할 기회를 가지도록 애를 썼지만 허사였다. 다음 날은 예루살렘에서 "성스러운 집회"가 열리기 때문에, 로마인들도 한 유대인을 위해 재판을 개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다는 둘째 날 아침까지 감옥에서 기다려야만 했으며, 예수도 그와 함께 감옥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충분한 시민으로 받아들여지는, 율법의 아들들이 되는 성전에서의 예식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유다는 열심당을 대표하여, 자신이 속해 있으면서 매우 열심히 활약한 그 애국 단체를 대표하여 선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느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있게 될 때까지, 몇 년 동안 이 공식적인 의식을 거치지 않았다.

128:6.7 (1415.7) 감옥에서 둘째 날을 맞은 아침에, 예수는 유다를 대신하여 군인 법무관(法務官) 앞에 나아갔다. 그는 동생이 나이 어린 것을 사과하고, 이어진 설명이지만 자신의 동생이 체포되도록 이끈 이 에피소드의 도발적인 본성을 사려 깊은 말로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서 그 사례를 잘 다루었기 때문에, 그 법무관도 그 젊은 유대인이 사납게 분노를 폭발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것을 시인하면서 그를 용서할 뜻을 비쳤다. 그리하여 유다에게 다시 그와 같은 경솔한 짓을 하지 않도록 경고한 뒤, 퇴장을 명령하면서 예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저 젊은이를 계속 주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는 당신들 모두에게 많은 문젯거리를 일으킬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 로마 법무관의 말은 사실이였다. 유다는 예수에게 상당한 문젯거리를 만들었으며 그것은 언제나 동일한 성질의 문제—지각없고 무분별한 애국심의 폭발로 인한 행정 당국과의 충돌—였다.

128:6.8 (1416.1) 예수와 유다는 그날 밤을 지내기 위해 베다니로 갔으며, 자신들이 유월절 만찬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설명하였고, 다음 날 나사렛을 향하여 떠났다. 예수는 가족들에게 그의 어린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던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돌아온 뒤 3주간 동안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유다와 긴 대화를 나누었다. 예수와의 이 대화 이후에 유다는 스스로 그 일을 가족들에게 말하였다. 그는 이번에 고통스럽게 체험한 모든 것을 통해서 현시된 자신의 형-아버지의 인내심과 관용에 대해 결코 잊지 않았다.

128:6.9 (1416.2) 이것은 예수가 자기 가족 중 어떤 일원과 함께 참석한 마지막 유월절이었다. 사람의 아들은 자신의 혈육과의 가깝게 관련됨으로부터 점점 더 분리되어 갔다.

128:6.10 (1416.3) 그 해에, 그의 깊은 명상의 시간들은 릿과 그녀의 소꿉친구들에 의해서 종종 방해받곤 하였다. 예수는 꼬마 친구들의 즐거움과 놀이를 위해서라면, 세상과 우주를 위한 미래의 일에 대한 깊은 사색을 뒤로 미룰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었으며, 그 아이들은 예수의 여러 차례에 걸친 예루살렘 여행에서의 그의 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 결코 싫증 내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동물들과 자연에 대한 그의 이야기도 매우 좋아하였다.

128:6.11 (1416.4) 수리소에서는 아이들이 언제나 환영을 받았다. 예수는 수리소 옆에 모래와 나무토막들이나 돌들을 준비해 놓았으며, 꼬마 아이들 무리가 놀기 위해 그곳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놀이를 하다가 싫증이 나면 그 중에 제일 대담한 아이가 가게 안을 엿보았고, 만약 가게 일이 바쁘지 않은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대담하게 들어와서, “여호수아 아저씨, 나와서 우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그가 가게 한 구석에 있는 좋아하는 바위 위에 앉을 때까지 예수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끌고 가려고 하였으며, 그가 돌에 앉으면 아이들은 그의 주위로 둥그렇게 둘러앉았다. 그리고는 여호수아 아저씨의 이야기를 얼마나 즐겁게 들었는지 모른다. 그때 그들은 웃는 법을, 실컷 웃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들 중에 제일 어린 한 두 아이는 의례 예수의 무릎 위로 올라와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용하는 그의 손짓을 경이롭게 바라보곤 하였다. 아이들은 예수를 사랑하였고, 예수 역시 아이들을 사랑하였다.

128:6.12 (1416.5) **예수의 친구들은 그의 이러한 지적 활동들의 범위, 정치나 철학 혹은 종교에 대해 심오한 토론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리고 완벽하게, 그가 5살에서 10살까지의 아이들과 즐겁고 천진함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성장하였기 때문에, 그는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얻을 수 있었으며, 아직 손자들이 태어나기 이전인 이 시절에, 그는 이 꼬마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았다. 그러나 그는 손자들과 충분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오래 이 땅에 살아 있지 못하였다.**

제 7 장. 26살 되던 해 (서기 20년)

128:7.1 (1416.6) **그 해가 시작되면서, 나사렛 예수는 자신이 광대한 영역의 잠재 힘을 갖고 있음을 강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힘은, 적어도 그의 때가 오기 전 까지는, 사람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개인성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으리라는 것도 역시 잘 알고 있었다.**

128:7.2 (1417.1) **이즈음에 그는 자신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였지만, 그것에 관해서는 거의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할 때, 이런 모든 생각에 대한 결론을 한 번 표현한 적이 있었으며, “내가 누구이든지, 내가 사용하게 될 혹은 사용하지 못할 그 힘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언제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기도하였다. 일터에 오가며 나사렛을 거닐던 이 남자에 대하여 기록된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말은—광대한 우주에 관한 한은— 문자 그대로 진실이었다.

^{128:7.3 (1417.2)} 그 해에는, 유다의 경우만을 제외한다면, 가족의 관련사들이 무난히 진행되었다. 야고보는 막내 남동생으로 인하여 수년 동안 속을 썩었는데, 그는 자리 잡고 일을 하려 하지 않았고, 가정의 생활비에 대한 자기 몫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는 집에서 사는 동안에도 집안 살림살이에 기여해야 할 자신의 몫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128:7.4 (1417.3)} 예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며, 이따금, 유다의 호전적인 행위와 수많은 애국심의 폭발로, 그는 난처했다. 야고보와 요셉은 유다를 내쫓고 싶어 했지만,

예수는 찬성하지 않았다. 그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면, 예수는 단지 다음과 같이 조언하였다: “참아라. 그리고 현명하게 조언하고 삶에서 모범을 보여라. 너희의 어린 동생에게 먼저 더 나은 길을 알려 주고 난 뒤에, 너희를 그렇게 따르도록 만들어라.” 이러한 예수의 현명하고 사랑 어린 조언은 가족 내의 분열을 막았고, 그들은 함께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유다는 결혼한 이후에서야 침착한 기질을 갖게 되었다.

128:7.5 (1417.4) 마리아는 예수의 장차 사명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 주제가 거론될 때마다 예수는 단지,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예수는 가족을 자신의 즉각적인 현존에 의존함에서 떼어놓는 어려운 작업을 거의 완성시켰다. 그는 사람들을 위한 자신의 실제 사명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 나사렛 고향 집을 아무런 문제없이 떠날 수 있는, 그날을 대비해서 신속하게 준비해 나갔다.

128:7.6 (1417.5) 예수는 자신의 일곱 번째 증여 속에 있는 주요 사명이 창조체의 체험을 획득하는 것, 네바돈의 주권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이 체험을 획득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유란시아는 물론 지역우주 전체에게 파라다이스 아버지를 최극으로 계시하였다. 그리고 이 목적 성취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그는 루시퍼의 반역에 관련된 이 행성의 복잡한 관련사들을 해결하는 임무도 또한 맡았다.

128:7.7 (1417.6) 그 해에 예수는 평상시보다 많은 여가를 즐길 수 있었으며, 수리점의 경영에 대하여 야고보를 훈련시켰고, 요셉에게 집안 관련사들을 처리하는 것을 지도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쏟았다. 마리아는 예수가 자기들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우리를 떠나 어디로 간단 말인가? 무엇을 하려고? 그녀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생각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납득할 수가 없었다; 자기 맏아들을 도대체 추측할 수 없었다.

128:7.8 (1417.7) 이 해 동안, 예수는 그의 가족의 개별 구성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는 그들과 함께 동산이나 한적한 곳으로 자주 그리고 멀리까지 산책을 나가고자 하였다. 추수 때가 되기 전에, 예수는 나사렛 남쪽에서 농사일을 하는 삼촌에게 유다를 데리고 갔지만, 추수가 끝나자 유다는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거기서 달아나 버렸으며, 나중에 호숫가에서 어부들과 함께 있는 그를 시몬이 발견하였다. 시몬이 그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예수는 그 도망자 소년과 오랫동안 이야기하였고, 그가 어부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막달라로 가서 친족 어부에게 그를 맡겼으며; 유다는 그 날 이후부터 자신이 결혼할 때까지 거기서 무던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일을 하였고, 결혼한 뒤에도 그는 계속 어부로 일하였다.

128:7.9 (1418.1) 드디어 예수의 모든 형제들이 그들의 생업을 정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며 평생 직업으로 삼는 날이 왔다. 예수가 집을 떠날 수 있는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128:7.10 (1418.2) 11월에는 두 쌍의 결혼식이 발생하였다. 야고보와 에스더, 미리암과 야곱이 결혼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정말로 즐거운 일이었다. 마리아조차도, 예수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때때로 깨닫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한 번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녀는 커다란 불확실성에 짓눌려 고심하였다. 예수가 소년시절처럼 앉아서 자유롭게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 준다면 좋았겠지만, 그는 계속 아무 말이 없었다; 미래에 대해서 깊은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128:7.11 (1418.3) 야고보와 그의 신부 에스더는, 그녀의 아버지가 선물해 준 읍내 서쪽편의 산뜻한 작은 집으로 이사 갔다. 야고보가 어머니의 집안에 도움을 계속 주었지만, 결혼 때문에 그에게 할당된 액수는 반으로 줄었으며, 예수의 뜻에 의해 요셉이 공식적인 가장으로 임명되었다. 유다는 이제 매우 신실하게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돈을 매 달 집으로 보내왔다. 야고보와 미리암의 결혼식은 유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쳤고, 두 쌍의 결혼식이 있던 다음 날, 유다는 고기잡이를 위해 집을 떠나면서, “내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겠다. 필요하다면 더 이상의 몫이라도 맡겠다.”라고 요셉에게 말하면서 자기를 믿어도 된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128:7.12 (1418.4) 미리암은 마리아의 이웃집인 야곱의 집에서 살았는데, 장로(長老)였던 야곱은 이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있었다. 마르다는 미리암을 대신해서 집안일을

하였고, 새롭게 짜인 조직은 그해가 끝나기 전에 이미 잘 돌아가고 있었다.

128:7.13 (1418.5) 두 쌍의 결혼식이 있었던 다음 날, 예수는 야고보와 중대한 의논을 하였다. 그는 자신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야고보에게 확실하게 말하였다. 그리하여 수리점의 책임자 직함을 야고보에게 물려주었고 요셉 집안 가장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엄숙하게 내어 주었으며, 예수는 아주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동생 야고보를 “내 아버지 집의 가장이며 수호자”로 세워주었다. 수리점을 선물로 물려받은 대신에, 야고보는 가족의 모든 재정적인 책임을 맡아보면서 예수를 이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비밀 계약서를 예수가 작성했고 둘이 다 서명을 하였다. 이리하여 계약서에 서명이 끝나고 예수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여 가계의 실재적인 비용의 예산안이 정리되었을 때, 예수는 야고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지만, 얘야, 내 때가 올 때까지는 매달 얼마씩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내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만 네가 쓰도록 해라. 네가 보기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가족의 필수품이나

취미 생활을 위해서 써라. 그리고 가족 중의 어떤 개별 구성원이라도 예측하지 못한 병이나 비상시를 만나면 그를 위해 그 돈을 쓰도록 해라.”

128:7.14 (1418.6) 이렇게 하여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일에 대한 대중을 위한 등장에 들어가기 전에, 어른 일생에서의 가정과-분리되는 두 번째 위상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제 129 편 예수의 성년 시절 후기

129:0.1 (1419.1) 예수는 나사렛 가족의 집안 관련사들을 돌보는 것과 가족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지도하던 것으로부터 충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는 세례의 사건 직전까지 가족의 재정에도움을 계속 주었고, 또한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 각자의 영적 행복에 세심한 관심을 쏟았다. 또한 그는 홀로된 어머니의 평안과 행복을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인간적 배려를 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다.

129:0.2 (1419.2) 이제 사람의 아들은 그 자신이 나사렛 고향집으로부터 영구히 떠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이것은 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예수는 본성적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였고,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였으며, 본성적인 이 애정은 그들에게 대한 자신의

비범한 헌신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증강되어 있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증여하면 할수록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더 커지게 되는데; 예수도 자기 가족들에게 것처럼 충만하게 주었기 때문에, 더욱 숭고하고 강렬한 애정으로 그들을 사랑하였던 것이다.

129:0.3 (1419.3) 가족들 모두는 예수가 자신들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현되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예상된 이별의 슬픔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계획된 떠남을 알릴 때를 대비하여 그들을 미리 준비시키는 점진적인 방법뿐이었다. 그리고 거의 4년 넘게 예수가 이 결국 생겨나는 이별을 위해 준비를 해왔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제 1 장. 27살 되던 해 (서기 21년)

129:1.1 (1419.4) 서기 21년, 그 해 1월 비가 내리는 일요일 아침에, 예수는 형식을 차리지 않고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면서, 자신은 티베리아스로 갈 것이며 그 후 갈릴리바다 주변의 다른 도시들을 방문하겠다는 설명만을 덧붙였다. 그렇게 하여 예수는 그들을 떠났고, 다시는 그 가정의 정식 구성원이 되지 않았다.

129:1.2 (1419.5) 그는 일주일 동안 티베리아스에서 보냈고, 그곳은 세포리를 대신하여 곧 갈릴리의 수도가 되기로 예정된 신도시(新都市)였으며; 그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거의 발견되지 않자, 그는 잇달아서 막달라와 벳세다를 거쳐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의 친구인 세베대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머물렀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어부들이었다; 세베대 자신은 배를 건조하는 사람이었다. 나사렛 예수는 설계와 건축에 숙련자였고; 나무를 다루는 일에는 이미 장인(匠人)의 경지에 있었다; 세베대도 그 나사렛 기술자를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세베대는 개량된 배를 만들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고심하고 있었으며, 이제 자신의 설계도를 예수 앞에 펼치면서 그 찾아 온 목수에게 자기와 함께 사업을 할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예수도 쾌히 승낙하였다.

129:1.3 (1419.6) 예수는 세베대와 1년이 조금 넘도록 함께 일하였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새로운 모양의 배를 만들었고 배 건조에 있어서 전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정립시켰다. 우월한 기법과 증기를 쥔 널빤지를 이용하는 대단히 개선된 방법들을 통해서, 예수와 세베대는 매우

우월한 유형의 배들, 이전에 사용하던 구식 배보다 훨씬 안전하게 호수를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 신형(新型) 배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세베대는 그의 작은 시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 훨씬 더 많은 작업을 수년 동안 했으며; 불과 5년이 채 못 되어, 호수 위에 떠있는 모든 배들은 실천적으로 가버나움의 세베대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예수는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에게 신형 배의 설계자로 유명해졌다.

129:1.4 (1420.1) 세베대는 적당히 재력이 있었다; 그의 조선소는 가버나움의 남쪽 호숫가에 있었고 그의 집은 벳세다의 어업기지 근처에 있는 호숫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예수는 그 해 동안 세베대의 집에서 살았지만 가버나움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 예수는 아버지를 여의고 오랫동안 세상에서 혼자 일해 왔으므로, 그의 아버지 격인 동반자와 함께 일하는 그 기간 동안을 매우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129:1.5 (1420.2)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는, 한 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大祭司長)이었다가 8년 전에 일선에서 물러난

후에도 여전히 사두개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인 안나스의 친족이었다. 살로메는 예수를 매우 탄복하게 되었다. 그녀는 예수를 자기의 친아들인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윗처럼 사랑하였고, 그녀의 네 딸들도 예수를 큰오빠로 여겼다. 예수는 종종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윗과 함께 고기잡이를 나갔으며, 그들은 예수가 배 만드는 일에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노련한 어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29:1.6 (1420.3) 그 일 년 동안, 예수는 야고보에게 돈을 매달 보냈다. 그리고 10월에는 마르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나사렛을 다녀왔고, 그 후로 2년 동안 예수는 나사렛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다시 나사렛으로 간 것은 시몬과 유다의 두 쌍의 결혼식 바로 전이었다.

129:1.7 (1420.4) 이 한 해 동안, 예수는 배를 만들었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계속 관찰하였다. 그는 카라반들의 집결지인 가버나움을 자주 방문하곤 하였는데, 그 도시는 다마스커스에서 남쪽으로 뻗은 직선 여행로의 길목에 위치해 있었다. 가버나움은 견고한 로마군 부대 주둔지로 중요한 장소였고, 부대의 사령관은

이방인이면서 야훼를 믿는 “헌신된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개종자들을 흔히 그렇게 불렀다. 이 장교는 로마의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고, 스스로 가버나움에 아름다운 회당을 지었으며, 예수가 세베대와 함께 살기 얼마 전에 유대인들에게 기증하였다. 예수는 그 해에 반(半)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새 회당에서 예배봉사를 수행하였었는데, 우연히 거기에 참석하였던 어떤 카라반들은 그가 나사렛에서 온 목수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129:1.8 (1420.5) 세금을 낼 기한이 되자, 예수는 자신을 “가버나움의 숙련된 기술자”로 등록하였다. 그리하여 이날 이후부터 그의 지상 일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는 가버나움 주민으로 알려졌다. 비록 그는 자기 거주지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마스쿠스, 베다니, 나사렛, 그리고 심지어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내버려두었지만, 그 자신은 다른 어떤 법적 거주권도 청구하지 않았다.

129:1.9 (1420.6)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동안, 그는 서고 속에서 많은 새로운 책들을 발견하였고, 적어도 일주일에 닷새

저녁은 연구에 매진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이틀 중에서 하루는 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보냈고 나머지 하루 저녁은 젊은 사람들과 보냈다. 예수의 개인성 속에는, 젊은이들을 늘 끌어당기는 온유하고 영감 어린 어떤 것들이 있었다. 그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편안함을 느끼게 하였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그의 큰 비결은 아마도 다음 두 가지 사실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인데, 그것은 그가 항상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과 그들이 물어오지 않는 한 그들에게 거의 충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29:1.10 (1420.7) 세베대의 가족은 예수를 거의 경배할 정도였으며, 그들은 저녁 식사가 끝나면 예수가 회당으로 공부하러 떠나기 전에 수행하는 질의응답 회의에 절대로 빠지지 않았다. 이웃의 젊은이들 역시 저녁 식사 후의 이 모임에 자주 참석하였다. 적은 숫자의 이 무리들에게 예수는 다양하고 진보적인 것들을 가르쳤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장 진보적인 것을 말하였다. 그는 그들과 매우 자유롭게 이야기하였고, 정치학, 사회학, 과학, 철학 등에 관해서 그의 관념과 이상들을 표현하였지만, 종교—하느님과 사람의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권위적인 최종을 주장하지 않았다.

129:1.11 (1421.1) 세베대에게는 많은 고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작업장 그리고 호숫가의 조력자들 전원과 함께 모임을 열었다. 그리고 바로 이들 일꾼들 사이에서 예수는 "주(主)"라고 처음으로 불렸다. 그들 모두는 그를 사랑하였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세베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였지만, 나사렛 목공소 옆에서 놀던 꼬마 아이들을 몹시 보고 싶어 하였다.

129:1.12 (1421.2) 세베대의 아들들 중에서 야고보는 예수를 선생, 철학자로 여기면서 그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요한은 주로 그의 종교적인 가르침과 견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다윗은 그를 하나의 기술자로는 존중하였지만, 그의 종교적인 견해와 철학적 가르침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129:1.13 (1421.3) 유다는 안식일 날 예수가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을 듣기 위해 종종 그곳에 왔고, 그를 만나기 위해 머물러 있으려고 하였다. 유다는 자기 큰형을 자주 대할수록, 그가 진실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

129:1.14 (1421.4) 그 해에 예수는 인간 마음을 우세하게 지배하는 일에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고, 자기 속에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와 의식적인 접촉을 이루는 새롭고도 높은 차원들을 달성하였다.

129:1.15 (1421.5) 그 해는 그의 정착된 일생의 마지막 해였다. 그 후로 그는 한 곳에서 또는 한 가지 일에 한 해 전부를 보낸 적이 전혀 없었다. 그의 이 땅의 순례여행의 날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집중적인 활동 시기가 오기까지 아직도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단순한 반면에 강렬하고 활동적이었던 그의 과거의 일생과, 더욱 긴장되고 격렬한 앞으로의 대중을 위한 사명활동, 수년 동안의 광범위한 여행과 매우 변화가 많은 개인적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 사이에 있는 과도기적인 시기를 맞고 있었다. 그의 유란시아 증여의 신성한 그리고 인간-이후의 위상들에 해당하는 완전케 된 하느님-사람으로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의 생애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세계의 한 사람으로서의 그의 훈련이 완성되어야만 했었다.

제 2 장. 28살 되던 해 (서기 22년)

129:2.1 (1421.6) 서기 22년 3월, 예수는 세베대와 작별하고 가버나움을 떠났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드는 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약간의 돈을 요청하였다. 그는 세베대와 일하는 동안 아주 적은 양의 돈만 꺼내서 그것을 매달 나사렛의 가족들에게 보냈다. 한 달은 요셉이 예수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 달에는 유다가 가버나움으로 올라 와 그것을 받아 나사렛으로 가지고 갔다. 유다가 일하는 어업기지(漁業基地)는 가버나움의 남쪽으로 겨우 몇 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129:2.2 (1421.7) 예수는 세베대의 가족들을 떠나면서, 유월절 기간까지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기로 동의하였고, 그들 모두가 그 사건 동안 거기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들은 유월절 저녁만찬을 함께 축하할 것까지도 계획하였다. 그들은 예수가 떠날 때 하나같이 슬퍼하였으며, 특히 세베대의 딸들은 더욱 그러하였다.

129:2.3 (1421.8) 가버나움을 떠나기 전에, 예수는 자신의 새로 발견한 친구이며 친밀한 동행자인 요한 세베대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요한에게 “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널리 여행을 할 계획임을 말하였고,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자기를 대신해서 나사렛 가족에게 매달 일정량의 돈을 보내달라고 요한에게 부탁하였다.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약속하였다: “나의 선생이시여, 당신의 일을 시작하고, 이 세상에서 당신의 과업을 이루십시오; 이 일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라도 제가 당신을 대신하여 처리할 것이며, 제가 친어머니와 친남동생과 여동생들을 돌보는 것처럼 당신 가족들은 돌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당신의 몫은 제가 맡아서, 당신이 지도한 대로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쓰겠으며, 만약 그 돈이 다 사용된 후에 당신의 어머니가 어려운 사정에 놓이게 된다면, 제가 당신에게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이상 없다 해도 제가 번 돈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니 평온하게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제가 이 모든 일들에서 당신을 대신하여 행동하겠습니다.”

129:2.4 (1422.1) 그리하여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떠난 뒤에, 요한은 예수가 받아야 할 돈에 대해 자기 아버지 세베대와 의논하였으며, 그 액수가 매우 많은 것에 놀랐다. 예수가 이 문제를 전적으로 그들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나사렛의 가족들을 돕는 것이 더 좋은 계획이라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세베대는 우선 일부만 받고 팔려고 내 놓은 작은 집이 가버나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돈으로 그 집을 매입해서 요한이 그의 친구를 대신하여 집문서를 맡아보는 신탁인(信託人)이 되도록 지도하였다. 그리고 요한은 아버지의 충고를 그대로 따랐다. 2년 동안의 집의 임대 수입은 나머지 집값을 갚기 위해 저축되었으며, 이 돈에, 예수가 그때 요한에게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데 쓰도록 보내온 상당히 큰 금액의 돈이 증강되어, 집값을 거의 갚을 만한 액수가 되었고; 기한이 되었을 때 세베대가 약간의 차액을 자기 돈으로 보충하였으므로, 요한은 방이 두개인 이 집을 완불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의 소유주가 되었지만 자신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

129:2.5 (1422.2) 나사렛의 가족들은 예수가 가버나움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요한이 맡은 재정적 원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이제는 예수의 도움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살림을 꾸려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믿었다. 야고보는

예수와 맺은 계약을 기억하였으며 그래서 형제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족 부양의 책임을 충분히 맡아보았다.

129:2.6 (1422.3)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거의 두 달 동안 그는 성전에서 열리는 토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다양한 학파들에 속한 랍비들을 가끔씩 방문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안식일은 베다니에서 보냈다.

129:2.7 (1422.4)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올 때,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자신을 “내 친아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편지를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로부터 받아 가지고 왔었다. 안나스는 그와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개인적으로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종교 선생들이 운영하는 많은 학교들을 방문하였다. 예수는 이 학파들을 면밀히 살피고 그 교습(敎習) 방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동안, 대중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다. 비록 안나스는 예수를 위대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그에게 어떻게 충고를 해야 할지 당황하고 있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학교라 할지라도 예수가 학생으로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제안하는 일은

어리석다는 것을 알았으며, 또한 그는 예수가 한 번도 이 학교들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식 교사의 지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129:2.8 (1422.5) 이윽고 유월절이 가까이 이르자, 사람들이 모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가버나움의 세베대와 그의 전(全)가족도 그곳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모두 안나스의 넓은 집에 머물렀고, 거기에서 즐거운 한 가족이 되어 유월절을 기념하였다.

129:2.9 (1422.6) 유월절 주간이 끝나기 전에, 겔으로 보기에 우연한 기회에, 예수는 부유한 여행자와 그의 아들을 만났고, 그 아들은 17세 정도 된 청년이었다. 이 두 여행자들은 인도인이었는데, 로마와 지중해의 여러 다른 지역들을 방문하는 도중이었고, 자기들 둘을 위해 통역을 하면서 아들의 가정교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유월절 기간을 맞아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다. 그 아버지는 자기들과 함께 여행해 주도록 예수에게 끈질기게 부탁하였다. 예수는 자신의 가족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떠나 있는 동안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는 가족들과 거의 2년 동안이나

떨어져 있는 것은 힘들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동방에서 온 그 여행자는 필요시에 예수의 가족의 안녕을 돌볼 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에게 일 년 분 봉급을 미리 주겠다고 예수에게 제안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그 여행에 동참하기로 동의하였다.

129:2.10 (1423.1) 예수는 이 많은 돈을 세베대의 아들 요한에게 전부 맡겼다. 그리고 이미 너희는 요한이 이 돈을 가버나움의 집값을 지불하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들어서 알고 있다. 예수는 세베대를 충분히 신뢰하고 지중해 지역의 여행에 대해 말해 주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 그의 혈육들에게 까지도 절대 비밀을 지킬 것을 당부하였으며, 세베대는 예수가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어디에 갔는지를 결코 누설하지 않았다. 예수가 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나사렛의 식구들은 그가 죽은 것으로 여기고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 자기 아들 요한과 함께 여러 번 나사렛을 찾아온 세베대의 확신에 찬 말만이 마리아의 가슴속에 얼마간의 희망을 갖게 해 주었다.

129:2.11 (1423.2) 이 기간 동안 나사렛의 가족들은 매우 잘 지냈으며; 유다는 자기 몫을 상당히 증가시켰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가외(加外)의 몫까지 감당하였다. 그들에게는 도움이 거의 필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 세베대는 예수가 지시한대로 매달 마리아와 롯에게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실천 관행이었다.

제 3 장. 29살 되던 해 (서기 23년)

129:3.1 (1423.3) 예수의 29번째 해 전부는 지중해 지역 여행을 마무리 짓는 데 사용되었다. 이 체험들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한도 내에서, 주요 사건들이 다음 장(障)에 서술되는 내용들의 주제를 이룰 것이다.

129:3.2 (1423.4) 로마 권역 세계에 대한 이 여행 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는 다마스쿠스의 서기관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고린도와 돌아오는 행로의 다른 경유지들에서는 유대인 교사로 알려졌다.

129:3.3 (1423.5) 이 기간은 예수의 일생 중에서 사건 많은 기간이었다. 이 여행 도중에 그는 많은 동무들을 사귀는 기회를 가졌지만, 이 체험은 그의 가족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전혀 알려진 적이 없었고 사도들도 알지 못하였던 그 자신만의 일생의 한 위상이었다. 예수는 계속 육신 속에서 살고 있었고, 자기가 광범위한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벳세다의 세베대를 제외하고는) 그 세계를 떠났었다. 그의 친구들 중 몇몇은 그가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였고 또 다른 이는 인도로 갔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알렉산드리아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 때 카잔(선생)의 보좌관 자격으로 그곳에 오도록 초청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29:3.4 (1423.6) 예수가 팔레스타인으로 되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알렉산드리아로 떠났었다고 생각하였고; 그는 자신이 팔레스타인에 없는 동안 문화와 지식의 도시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가족들이 믿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었다. 벳세다에서 배를 만드는 세베대만이 유일하게 이 사실들을 알았지만, 세베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129:3.5 (1423.7) 유란시아에서 예수의 일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해독하기 위해 너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너희는 미가엘 증여의 동기에 대해서 유념해야 한다. 만약 너희가 겉으로 보기에 신비한 듯한 그의 수많은 행위들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가 너희의 세계에 체류한

목적을 알아야만 한다. 그는 과도한 매력을 느끼게 하거나 주의를 쏟게 하는 개인적 생애를 이루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하였다. 그는 동료들에게 비범성이나 과대한 힘을 나타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자기 동료 필사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에 전념하였고, 동시에 바로 그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의지에 항상 복종하며 자신의 이 땅에서의 일생을 필사자로서 살아가는 숭고한 과업에 전념하였다.

129:3.6 (1424.1) 이 신성한 증거를 배우는 모든 필사자 수련생들이, 그가 유란시아에서 이 육신화의 일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전체 우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의 예수의 일생을 납득하는 데 항상 도움이 될 것이다. 네바돈 전체 우주에 있는 모든 개개의 거주 구체에 대하여, 필사자 자연 본성의 육신으로 살았던 그의 일생과 연관하여, 특별하고 영감을 주는 그 어떤 것이 있었다. 유란시아에 머물렀던 그의 사건 많은 기간 이후로, 거주할 만 하게 된 모든 세계들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 지역우주의 모든 미래 역사 속에서, 의지를 가진 창조체들이 거주하게 될 모든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진리가 될 것이다.

129:3.7 (1424.2) 이 기간 동안, 그리고 로마 지역을 여행한 체험을 통해, 사람의 아들은 그와 동시대에 살던 여러 종류의 민족들과의 교육적인 접촉-훈련을 실천적으로 완성하게 되었다. 그가 나사렛으로 돌아오기까지, 훈련을 위한 이 여행을 통해서, 그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며, 유란시아에서 자신의 실존을 어떻게 성취해야 할지를 배워나가기 시작하였다.

129:3.8 (1424.3) 지중해 지역을 여행한 그의 실제 목적은 사람을 아는 것이었다. 그는 이 여행에서 수백 명의 사람과 가깝게 사귀었다. 그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흑인과 백인, 교육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교양 있는 자와 교양 없는 자, 동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과 비종교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과 비도덕적인 사람을 만났고 사랑하였다.

129:3.9 (1424.4) 이 지중해 지역 여행 도중에, 예수는 물질적인 필사자의 마음을 정복하는 자신의 인간 과업에서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으며, 그에게 내재하는 조절자는 이 동일한 인간 지성을 상승시키고 그것의 영적 정복에 있어서 굉장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예수는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 우주 아버지의 창조자 아들이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모든 인간 확실성과 더불어— 알게 되었다. 그 조절자는, 그가 이 네바돈 지역우주를 조직하고 관리-운영하기 전에 자신의 신성한 아버지와 함께 하는 파라다이스에서의 체험에 대한 자신의 희미한 기억을, 점점 더 사람의 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하여 그 조절자는, 예수가 영원한 과거의 다양한 신(新)시대들 속에 사는 동안, 이전(以前)의 신성한 실존으로 있을 때 가졌던 필요 불가결한 기억들을 예수의 인간 의식 속으로 조금씩 붙여넣었다. 그 조절자가 그에게 회상시킨 그의 인간 이전의 체험 중 마지막 에피소드는, 유란시아 육신화의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자신의 의식적 개인성을 양도하기 직전에, 구원자별의 임마누엘과 송별 회의를 가진 것이었다. 그리고 인간-이전(以前) 실존의 이 마지막 장면에 대한 기억은, 요단강에서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는 바로 그 날 예수의 의식 속에 명료해졌다.

제 4 장. 인간 예수

129:4.1 (1424.5) 계속 지켜보고 있던 지역우주에 있는 천상(天上)의 지능존재들에게, 예수의 이 지중해 지역

여행은, 적어도 십자가에 못박히고 필사자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 이전의, 그의 모든 지상 체험 전체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곧 뒤이은 그의 대중을 위한 사명활동의 신(新)시대와는 대조적으로, 이 기간은 그의 개인적 사명활동에 있어서 매혹적인 기간이었다. 이 독특한 에피소드는 그가 여전히 나사렛의 목수였고 가버나움의 선박 목수였으며 다마스쿠스의 서기관으로 있을 때의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더욱 열중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아직도 사람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인간 마음을 충분히 지배하는 경지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고; 조절자는 필사자의 정체성을 충분히 익히지 못하였고 부분화 시키지 못하였다. 예수는 여전히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129:4.2 (1425.1) 사람의 아들의 순수한 인간 종교적 체험—개인적 영적 성장—은 29세가 된 이 해 동안에 거의 정점에 이르는 달성에 도달하였다. 영적 발전에 대한 이러한 체험은, 그의 생각 조절자가 도착한 그 순간부터, 사람의 물질적 마음과 영의 마음-자질—이 두 마음들을 하나로 만드는 현상, 요단강에서 그가 세례 받는 날에, 사람의 아들이, 영역에 육신화된 필사자로서, 완벽과 최종을 달성했던 그 체험—

사이에서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완성되고
확정되는 그 날까지, 일관적으로 점진적인 성장을
계속하였다.

129:4.3 (1425.2) 이 해들 전체를 통하여, 그는 하늘에 계신 자기
아버지와는 공식적인 교제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내주 하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영
현존과의 개인적 교통을 이루는 데에는 효력적인
방법들을 점점 더 완전하게 하였다. 그는 실제적인 일생,
충만한 일생, 그리고 진실로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평범한 일생을 육신 속에서 살았다. 그는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물질세계들 속에서는, 인간
존재들의 일생의 삶의 본질과 그 전체 합계의 실재성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129:4.4 (1425.3) 사람의 아들은 뛰어난 기쁨에서부터 심오한
슬픔까지, 인간 감정의 넓은 영역을 모두 체험하였다. 그는
명랑한 아이였으며 훌륭한 유머 감각을 지닌 존재였으며,
마찬가지로 "슬픔 위에 비탄이 겹쳐진 사람"이었다. 영적
감각에서 보자면, 그는 필사자 일생을 통해 바닥으로부터
꼭대기까지, 시작으로부터 끝까지를 체험하였다.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는 인간 실존의 사회적 양극단을 통하면서 삶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인류의 전반적인 그리고 완벽한 체험에 대해 지적으로 전적으로 정통하게 되었다.

129:4.5 (1425.4) 예수는 생각들과 느낌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세계에서 진화하고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갖는 충동들과 자극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는 육체적, 지적, 영적 자아신분의 시발점부터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를 지나 어른에까지—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인간 체험까지— 이르는 인간 일생을 살아 나갔다. 그는 지적, 영적 진보를 이루는 이러한 평범하고 친숙한 인간 기간들을 통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란시아에서는 지금까지 극소수의 필사자들밖에 성취하지 못한, 인간과 조절자의 화해를 이루는 것과 같은 더욱 높고 진보된 위상도 역시 충만하게 체험하였다. 그리하여 필사 사람의 전 생활을 체험한 그의 일생은, 너희의 세계에서 산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가진 모든 다른 진화하는 세계에의 일생에서도 그러하고, 빛과 생명에 정착된 최고의 그리고 가장 진보된 모든 세계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29:4.6 (1425.5) 비록 그가 필사자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이러한 완전한 일생이, 이 땅에서, 여전히, 그와 같은 시대에 사는 기회를 가졌던 그의 동료 필사자들로부터 분별불가하고 보편적인 승인을 받아들이지 못해왔다 할지라도, 유란시아에서 나사렛 예수가 육신으로 살았던 그 일생은, 하나이자 같은 시기에, 그리고 하나이자 같은 개인성-일생 안에서, 필사 사람에 대해 영원한 하느님의 계시에서의 충만함, 그리고 무한한 창조자의 만족에 대해 완전해진 인간 개인성의 현존활동을 구성하여 이루는 것으로서, 우주 아버지에 의한 충만하고도 분별불가한 승인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129:4.7 (1425.6) 그리고 이것이 그의 참되고 최종 목적이었다. 그는 그 당시 또는 모든 다른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아이나 어른, 남자나 여자에 대한 완전하고도 세부적인 본보기로 유란시아에 살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었다. 참으로 그의 충분하고 풍성하며 아름답고 고상한 일생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정확한 모범과 신성한 영감을 주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가 진실하고 순수한 인간 일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예수는 다른 모든 인간 존재들이 모방해야 할 어떤 본보기를 설정하려고 이

세상에서 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너희들 모두가 땅에서 너희 일생을 사는 것과 똑같은 자비로운 보살핌에 의해서 육체 속의 일생을 살았다; 그리고 그가 자기 시대에 자신의 있는 상태 그대로 필사자 일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있는 상태 그대로 우리의 일생을 살라는 모범을 그것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설정해 주었던 것이다. 너희는 그의 일생을 살아가기를 열망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가 그의 삶을 산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같은 의도로 너희가 너희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할 수 있다. 예수는 이 지역우주의 전체 영역에서 모든 시대의 필사자들을 위하여 기술적인 본보기와 세세한 부분의 모형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최초로 상승 과정이 이루어지는 세계들로부터 우주들의 우주를 지나 하보나를 통해 파라다이스로 가는 모든 파라다이스 순례자들에게, 영속적으로 영감과 지침이 되어 주고 있다. 예수는 사람으로부터 하느님께로, 부분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한 것으로,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시간으로부터 영원으로 이르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다.

129:4.8 (1426.1) 스물-아홉 살 되던 해가 저물음에 따라서, 나사렛 예수는 육신 속으로 머무는 자들로서의 필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일생의 삶을 실질적으로 완결했다. 그는 하느님의 충만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이 세상에 왔었다; 이제는 하느님에 대한 현시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기다리는, 거의 사람에서의 완전함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30세가 되기 전에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

제 130 편 로마로 가는 길에서

130:0.1 (1427.1) 이 세상에서의 예수의 일생 중에서 28세가 되던 해 대부분과 29세 전반부 기간은 로마인들의 세상을 여행하는 데에 쓰였다. 예수와 두 명의 인도에서 온 인도인—고노드와 그의 아들 가니드—은 서기 22년 4월 26일 일요일 아침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들은 일정에 따라서 여행을 하였고, 예수는 그 이듬해인 서기 23년 12월 10일에 페르시아 만의 카락스 시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130:0.2 (1427.2) 예루살렘을 출발한 그들은 요파를 경유해서 케자리아로 갔다. 케자리아에서 그들은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로 갔고, 거기서 다시 크레테의 라시아로 향해하였다. 크레테에서 키레네를 거쳐 카르타고로 갔다. 카르타고에서 그들은 나폴리로 향하면서 말타와

시라큐스와 메시나를 경유하였다. 나폴리로부터 그들은 카푸아로 갔고 그리하여 아피아 도로를 통하여 로마에 이르렀다.

130:0.3 (1427.3) 그들은 로마에서 머문 다음 육로를 이용해 타렌툼으로 갔다. 거기서 그들은 그리스의 아테네로 향해하였다. 그리고 중간에 니코폴리스와 고린도에서 머물렀다. 아테네로부터 그들은 트로아를 경유해서 에베소에 이르렀고, 에베소에서 다시 배를 타고 키프러스로 향해했다. 그리고 가는 도중 로드를 들렀다. 그들은 키프러스에 머물면서 상당한 시간을 방문과 휴식으로 보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리아의 안디옥을 향해 향해하였다. 안디옥에서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와 시돈을 여행하였고, 다마스쿠스까지 갔다. 그곳에서 카라반 길을 통해 메소포타미아로 갔고 탑사쿠스와 라리싸를 지나갔다. 그들은 바빌론에서 얼마간 머물다가 우르와 다른 지역들을 방문하고 수사로 갔다. 수사에서 그들은 카락스로 갔고, 거기에서 고노드와 가니드는 배를 타고 인도로 떠났다.

130:0.4 (1427.4) **예수가 고노드와 가니드가 사용하는 언어의 기본 원리를 습득한 것은 다마스쿠스에서 일했던 4개월 동안이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고노드의 고향 출신인 한 인도인의 도움을 받아가며, 그리스어를 인도의 언어들 중의 하나로 번역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130:0.5 (1427.5) **이 지중해 지역 여행에서** 예수는 매일 대략 절반의 시간을 가니드를 가르치는 일과, 고노드의 사업상 회합 그리고 사교에 있어서의 통역 일을 하며 보냈다. 매일의 나머지 시간은 예수가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 그는 그 시간들을 전적으로 주위 사람들과 사적으로 만나면서 보냈는데, 그가 그 세계의 필사자들과 그토록 가깝게 지내던 것은, 자신의 대중을 위한 사명활동을 시작하기 직전 몇 년 동안의 활동에 있어서 매우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130:0.6 (1427.6) **직접적인 관찰과 실재적인 접촉을 통해서** 예수는 서양과 레반트 지역의 비교적 높은 물질적 그리고 지적 문명을 스스로 습득하였다; 고노드와 그의 영리한 아들로부터는 인도와 중국의 문명과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특히 고노드 자신은 인도의 시민이면서도

황색 인종의 제국까지 세 번이나 두루 여행을 한 사람이었다.

130:0.7 (1427.7) 이 젊은 사람 가니드는, 이와 같은 예수와의 길고도 친밀한 동행의 기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들은 시간이 감에 따라 서로를 더욱 더 좋아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이 젊은이의 아버지는 예수에게 그들과 함께 인도로 가자고 여러 번 청했지만, 예수는 언제나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이유로 그의 청을 사양하였다.

제 1 장. 요파에서—요나에 관한 설교

130:1.1 (1428.1) 요파에서 그들이 머무는 동안, 예수는 제혁업자인 시몬이라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가디아라는 필리스틴 사람 통역자를 만났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고노드의 대리상(代理商)들이 이 시몬과 많은 거래를 하고 있었으므로, 고노드와 그의 아들은 케자리아로 가는 길에 이 시몬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요파에 머무는 동안 예수와 가디아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이 젊은 필리스틴 사람은 진리 탐구자였다. 예수는 진리 수여자였으며; 그 세대 동안에는 유란시아에서 진리 그 자체였다. 위대한

진리 탐구자와 위대한 진리 수여자가 만날 때, 그 결과는 새로운 진리의 체험에서 탄생되는 어떤 위대하면서도 자유로움을 주는 깨우침이 된다.

130:1.2 (1428.2) 어느 날 저녁식사를 마친 뒤, 예수와 필리스틴 청년은 해변을 거닐었으며, 가디아는 이 “다마스커스의 서기관”이 히브리 역사에 정통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요나가 타르쉬시로 가는 불행한 항해를 위해 승선했던 배가 정박해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에게 그 배를 가리켰다. 그는 설명을 마치면서, “그렇지만, 큰 물고기가 실제로 요나를 삼켰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때 예수는, 이 젊은이의 일생이 이러한 전통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으며, 그것이 임무로부터 도망치는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사색을 통하여 감동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예수는 가디아의 실천적인 생활을 위한 현실적 동기를 이루는 토대를 갑자기 무너뜨릴만한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예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의 친구여,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요나들이며, 우리가 삶에서의 현재의 의무에서 벗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유혹으로 도망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진리와 정의(正義)의

기세로 지도되지 않는 그러한 영향력의 직접적인 통제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것이다.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진리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하느님을-저버린 그런 요나들이 가슴을 돌이켜 그 절망의 수렁에서라도 하느님과 그 분의 선함을 탄원하지 않는 한, 빛과 생명의 봉사에서 도피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둠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기심이라는, 다루기 힘든 고래들과 비참한 투쟁을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낙심된 혼들이 진심으로 하느님을 찾고자 열망—진리에 대한 굶주림과 정의에 대한 갈증—할 때에는, 아무 것도 그들을 더 이상 붙잡아 매어 둘 수 없다. 그들이 빠진 수렁이 아무리 깊다 해도, 그들이 전심으로 빛을 구하기만 하면, 하늘에 계신 주님 하느님의 영이 그들을 그 수렁에서 구원할 것이며, 일생을 둘러싼 악한 환경이 그들을 토해내어 그들은 다시 새로워진 봉사와 현명한 삶을 위한 신선한 기회의 마른 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130:1.3 (1428.3) 가디아는 예수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되었고 그들은 밤이 깊도록 해변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다.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사렛 예수를 신실하게 믿게 되었으며, 도르가의 집에서 어느 날 저녁에 베드로와 인상적인 토론을 벌였던 가디아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 그리고 가디아는, 부유한 가죽 상인 시몬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는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된 일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130:1.4 (1428.4) (예수가 지중해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동료 필사자들과 함께 하였던 개인적 행적들을 서술함에 있어서, 우리가 허락 받은 한도 내에서, 이것이 쓰이던 당시에 사용되고 있는 유란시아의 현대적 언어로 그의 말들을 자유롭게 번역할 것이다.)

130:1.5 (1429.1) 예수가 마지막으로 가디아를 만났을 때, 그들은 선(善)과 악(惡)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필리스틴 청년은 세상에 선과 악이 병행하여 현존하고 있으니 불공정하다는 느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하느님이 무한히 선하시다면, 어째서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 인한 슬픔을 겪게 내버려두시는지요? 결국 악은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라고 말하였다. 그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이 선과 악 둘 모두를 창조했다는 것을 여전히 믿고 있었지만, 예수는 그 같은 잘못을 결코 가르치지 않았다. 그 질문에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의 형제여,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므로; 그는 선하실 수밖에 없으며; 그의 선함은 너무나 크고 실제여서, 악으로 인한 사소하고도 비(非)실제적인 것들을 포함할 수 없다. 하느님은 너무나 긍정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부정적인 악이 남아있을 소지가 절대적으로 없다. 악은, 선에 저항하고 아름다움을 거부하며 진리에 불충하는 우리들의 성숙되지 못한 선택이며 경솔한 실수이다. 악은 단지 미숙함에서 오는 부적응이거나, 혹은 무지에서 오는 분열시키고 왜곡시키는 영향력일 뿐이다. 악은 어리석게 빛을 거부한 결과로 수반되는 필연적인 어두움이다. 악은 어둡고 거짓된 것이며,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고의적으로 시인될 때 죄가 된다.

130:1.6 (1429.2)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는, 진리와 잘못 둘 중에서 선택하는 힘을 너희들에게 자질로서 부여주심으로써, 빛과 생명의 긍정적 길에서의 부정적 잠재를 창조하셨다; 그러나 악에서의 그러한 잘못은, 지능 창조체들이 일생에서의 길을 잘못 선택함으로, 그러한

것들의 실존을 뜻하기로 정할 때까지는, 실제로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어떤 뜻대로 하는 반역적 창조체가 알면서 고의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면 그로 인하여, 그것들은 죄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다. 수확의 시기까지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자라고 있듯이,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선과 악을 생명의 끝날 까지 함께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이유이다.” 가디아는 그 뒤에 이어진 자기들의 토론들을 통하여 이러한 중요한 말들의 실제 의미들을 마음속에서 명료하게 이해하게 되자, 자기 질문에 대한 예수의 답변에 충분히 만족하게 되었다.

제 2 장. 케자리아에서

^{130:2.1 (1429.3)} 예수와 그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타고 가려던 배의 커다란 노 중에 하나가 쪼개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계획보다 더 오래 케자리아에 머물러 있었다. 선장은 새로운 노가 만들어질 동안 항구에서 정박해 있기로 결정하였다. 이 일을 맡아서 할 숙련된 목수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예수는 자원해서 그 일을 도와주었다. 저녁시간 동안에는 예수와 그의 친구들이 항구 주위에서 산책로로 쓰이는 아름다운 제방 위를 걸어

다녔다. 가니드는 도시의 수리(水利) 체계와 또한 조수를 이용해서 도로와 하수도를 씻어 내리도록 꾸며진 기법에 대한 예수의 설명을 듣는 것을 좋아하였다. 이 젊은 인도인은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 신전은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었으며 로마 황제의 거대한 동상이 그 위에 서 있었다. 그곳에 머문 지 이틀째 되는 날 오후, 그 세 사람은 좌석이 2만 개나 되는 거대한 원형극장의 공연에 참석하였으며, 그 날 밤에는 극장에서 상연되는 그리스 연극을 보러 갔다. 이러한 것들은 가니드가 처음으로 구경하는 것들이었으며, 그는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다. 케자리아는 팔레스타인의 수도였고 로마 행정관의 거주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셋째 날 아침에 총독의 관저를 공식적으로 방문하였다.

130:2.2 (1429.4) 그들이 머무는 숙소에 몽고에서 온 한 상인이 묵고 있었고, 극동(極東)에서 온 이 사람은 그리스어에 유창하였기 때문에 예수는 여러 차례 긴 시간 동안 그를 만났다. 그 사람은 예수의 일생의 철학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매일 복종함으로써,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늘의 일생을 누리는 것”에 관한

그의 지혜로운 말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이 상인은 도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우주적 신(神)의 교리를 깊이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몽고로 돌아갔을 때, 그는 이 진보된 진리들을 자신의 이웃과 동반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며, 그러한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로, 그의 장남은 도교의 제관(祭官)이 되려고 결심하게 되었다. 이 젊은이는 이 진보된 진리가 널리 펼쳐지도록 일생동안 애를 썼고, 그의 아들과 손자 역시 유일신 하느님—하늘의 최극 통치자—에 대한 교리에 헌신적으로 충성하였다.

130:2,3 (1430.1) 필라델피아에 그 본부를 둔 초기 그리스도교의 동쪽 지류(支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형제들보다 예수의 가르침을 더욱 신실하게 믿는 동안, 베드로와 같은 태도로 중국으로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바울과 같은 태도로 인도로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었으며, 그 곳의 영적 토양은 그 때 이미 새로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에 너무나도 적당한 옥토로 되어 있었다. 필라델피아인 들이 갖고 있었던 바로 이들 예수의 가르침은,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던 이 아시아 사람들의 마음에게도,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가 서방에서

이룩했던 것과 똑같이, 즉각적이고도 효력이 있는 호소를 이루어냈을 것이다.

130:2,4 (1430.2) 예수와 함께 키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젊은이가, 그들이 조선소에서 고된 일을 하는 동안 예수가 시간 시간마다 이따금씩 내 던지는 말에, 하루는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땅에 있는 자녀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가 던지시 비쳤을 때, 이 젊은 그리스인 아낙산드는, “만약 하느님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왜 그들은 이 무자비하고 부당한 십장(什長)을 없애버리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였다. 그는 예수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아마도 하느님들은 네가 친절을 베푸는 방법을 알고 있고 공의를 존중하기 때문에, 네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더 좋은 이러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네게 가까이 두는 것 같다. 아마 네가 이 형제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더욱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소금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곧, 네가 아직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이 사람이 너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끼치는 악한 길에서 너의 주인이 되고 있다. 너는 왜, 선의 힘에 기대어 악에 대한 너의 주인된

권리를 주장하여 그로서 너희 둘 사이의 모든 관계에서 네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않는 것이냐? 내가 예언하건대, 네가 만약 네 안에 있는 선이 제대로 살아날 기회를 주기만 한다면, 그 선이 악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필사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잘못과 악에 대항해서 승리하는 영적 에너지와 그리고 신성한 진리와 손을 잡고 일하는 기쁨보다, 더 신나는 모험은 아무 것도 없다. 영적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영적 빛의 살아있는 통로가 되어 준다는 것은 놀랍고도 그리고 변환이 일어나는 체험이다. 만약 네가 이 사람보다 진리에 대한 축복을 더 많이 받았다면, 그의 부족함은 너에게 도전이 될 것이다. 너는, 수영을 못하는 친구가 바다에 빠져 죽어 가는 것을 지켜보고도 그대로 바닷가에 서 있을 겁쟁이는 분명히 아니다! 물 속에 빠져 죽어가는 육체와 비교해 볼 때,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 사람의 혼은 얼마나 더 많은 가치가 있겠느냐!”

130:2.5 (1430.3) 아낙산드는 예수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윽고 그는 예수가 한 말을 자기 상급자에게 전했고, 그날 밤 그 둘은 자신들 혼의 행복을 위해 예수에게 충고를 구했다. 그리고 뒷날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케자리아에

전파되었을 때, 한 사람은 그리스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로마인인 이 두 사람은, 모두 빌립의 설교를 믿고 빌립이 설립한 교회의 훌륭한 회원이 되었다. 후에 이 젊은 그리스인은 로마군 백부장인 코넬리우스의 청지기가 되었고,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신자가 되었다. 아낙산드는 바울이 케자리아에서 감옥에 갇히는 날까지,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빛을 전했으며, 그러다가 그는 2만 명 유대인 대학살 사건 당시 고통 받는 이들과 죽어 가는 이들을 위해 일하던 중에, 그 자신도 사고로 죽었다.

130:2.6 (1431.1) 이 무렵에 가니드는, 자신의 선생이 자기 동료들에게 이러한 유별난 개인적 사명활동에서 어떻게 자신의 여가 시간을 보냈는지를 알기 시작하였으며, 그 젊은 인도인은 예수가 이러한 끊임없는 활동을 하는 동기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는, "당신은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왜 그토록 끊임없이 몰두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니드야, 하느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도 낯선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는 체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형제임을 발견하게 되는데, 새로 발견한

형제를 만나는 즐거움에 빠지는 것이 그렇게도 이상하게 보이는가? 자신의 형제자매들을 사귀고, 그들의 문제를 알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 삶에 있어서의 최극 체험이 된다.”

130:2.7 (1431.2) 이 이야기는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고, 그러는 중에 그 젊은이는, 하느님의 뜻과, 의지라고 불리는 선택을 이루는 인간 마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예수에게 물었다. 예수가 말한 요지는 이러하였다: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의 길, 어떤 잠재적인 양자택일에 직면하였을 때 하느님의 선택과 동반자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점점 더 하느님처럼 되어 가는 진보의 체험이며, 하느님은 모든 선(善)하고, 아름답고(美), 참된(眞) 것의 근원이자 운명이다. 사람의 의지는 사람의 길이며, 그것은 되고자하고 하고자하는 필사자의 선택의 총합(總合)이자 본질체이다. 의지는 지능적인 반영에 기초를 두고, 결정-행위로 인도하는 자아-의식 존재의 고의적인 선택이다.

130:2.8 (1431.3) 그 날 오후 예수와 가니드는 아주 영리한 목양견(牧羊犬) 한 마리와 즐겁게 놀았는데, 가니드는

문득 개도 혼을 갖고 있으며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가니드가 예수에게 질문을 하자, 예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개는 자기 주인, 물질적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일종의 마음은 갖고 있지만, 영(靈)이신 하느님을 알 수는 없으며, 따라서 개는 영적 본성을 갖고 있지 않고 영적 체험도 즐길 수 없다. 개는, 본능에서 나오고 훈련으로 증강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있지만, 그러한 마음의 힘은 영적 기세도 아니며, 더욱이 그것은 반영적이 아니기 때문에—그것은 보다 고상하고 도덕적인 의미들을 분별한 결과가 아니고,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들을 선택한 결과도 아니다—, 인간의 의지와는 비교될 수 없다. 필사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인 존재, 영적인 책임을 갖는 속성과 영원한 생존의 잠재력을 자질로서 부여받은 창조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영적 분별력과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는, 동물에게는 그런 정신력이 없기 때문에 언어를 발전시킨다거나 영원에서의 개인성 생존과 동등한 어떤 것을 체험하기란 언제까지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덧붙여서 설명하였다. 그 날 예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가니드는 사람의 혼이 동물의 몸속에 윤회된다는 믿음을 다시는 갖지 않게 되었다.

130:2.9 (1431.4) 다음 날 가니드는 자기 부친과 이 문제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고노드의 질문에 대해, 예수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동물적 실존에서의 물질 문제를 행하려고 내리는 일시적인 결정들로 온통 몰두되어 있는 인간 의지는 때가 되면 소멸될 운명에 처해 있소. 전심을 다해서 내린 도덕적 결정과 분별불가적인 영적 선택을 내리는 사람들은 내주하는 신성한 영과 점차로 정체성이 확인되어 가며,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생존의 가치들—신성한 봉사의 끝남이 없는 진보—속으로 점점 더 변환되어 가는 것이요.”

130:2.10 (1431.5) 바로 그 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진리를 처음 들었는데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의지란, 주관적 의식이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도록 할 수 있고, 하느님과-닮음이 되고 싶은 열망의 현상을 체험하도록 할 수 있는 인간 마음의 현시활동이다.” 그리고 모든 반영적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마음기능을 하는 인간이 창조적으로 된다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의미이다.

제 3 장. 알렉산드리아에서

130:3.1 (1432.1) 케자리아의 사건 많은 방문은 매우 뜻 깊은 것이었고, 배가 준비되자, 예수와 그의 두 친구들은 어느 날 정오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향해 출발하였다.

130:3.2 (1432.2) 그 세 사람은 알렉산드리아로 항해하면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가니드는 그 항해를 매우 즐겼으며, 예수는 그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하기 바빴다. 그들이 항구에 다가가자 가니드는 파로스의 거대한 등대를 보고 흥분하였는데, 그 등대는 알렉산더가 방파제를 만들어서 본토를 연결시켜 놓은 섬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는 또한 두 개의 커다란 항구를 만들어서 알렉산드리아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해상무역의 교차로 구실을 하게 하였다. 이 거대한 등대는 세계 7대 불가사의(不可思議) 중의 하나였고, 후대의 모든 등대들의 기원이 되었다.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이 장엄한 건축물을 보기 위해 새벽 일찍 일어났고, 가니드가 감탄사를 연발하는 동안 예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 아이야, 네가 인도로 돌아가면 네 부친이 돌아가신 후일지라도 이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너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주위 사람들의 빛이 될 것이고, 누구든지 안전하게 구원의

항구에 도착하는 길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러자 가니드는 예수의 손을 붙잡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130:3.3 (1432.3) 초기 그리스도교 교사들이 로마 세계라는 서방 문명권에만 집중적으로 그들의 주의를 기울인 것은 커다란 오류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바이다. 예수의 가르침들이 1세기에 메소포타미아의 신자들에 의해 간직되었던 것처럼, 아시아 종교인들의 여러 집단들에 의해서도 쉽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130:3.4 (1432.4) 항구에 도착한지 네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길고 넓은 도로, 폭은 30미터이고 길이는 5마일 정도 되고, 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그 도시의 서쪽 끝까지 뻗어 있는 큰길의 동쪽 끝부분 가까운 장소에 숙박 장소를 정하였다. 그 도시에서 제일 볼만한 것들—대학(박물관), 도서관, 알렉산더의 왕릉, 궁전, 바다의 왕 넵툰 신전, 극장, 체육관—을 먼저 돌아본 후에, 고노드는 자신의 사업에 관계되는 일을 시작하였고, 예수와 가니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갔다. 그곳에는 모든 문명세계; 그리스, 로마, 팔레스타인, 파르티아, 인도,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까지 가져온 거의 100만 권에 이르는 서적들이 모여 있었다. 이 도서관에서 가니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도 문헌들을 보았다;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 머무는 동안 이곳에서 매일 일정한 시간을 보냈다. 예수는 가니드에게 이곳에서 히브리 경전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일에 관해 말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였으며, 그 때마다 예수는 이 젊은이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면서 이 젊은 마음에 진리를 심어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야훼는 멜기세덱의 계시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발생한 하느님이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나중에는 멜기세덱이 살았고 가르쳤으며 모든 세계들에 선생들을 보낸 중심지였던 이 땅을 차지하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종교는 다른 어떤 세계 종교들보다, 이스라엘의 주님 하느님을 하늘에 계신 우주 아버지로서 훨씬 정확하게 묘사하였다.”

130:3.5 (1432.5) 가니드는 예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우주적 신(神)을 인정하는 모든 세계 종교들의 가르침들이 비록 다른 한 편으로는 종속적인 신(神)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종합해 보았다.

예수와 가니드는 많은 토론 끝에, 로마인들은 그들의 종교 속에 실제적인 하느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그들의 종교는 거의 황제 경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스인들의 경우에는, 철학을 갖고 있을 뿐 개인적 하느님을 가진 종교는 갖고 있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신비 예배종파의 경우에는, 많은 신(神)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데다가, 신(神)들에 대한 그들의 다양한 개념도 다른 종교 또는 더 고대의 종교들로부터 파생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것들은 제외시켰다.

130:3.6 (1433.1) 비록 이 해석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행해졌으나, 가니드가 최종적으로 선별작업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개인적 결론들을 첨가한 것은, 로마에서의 체류기간이 다 끝나 갈 무렵이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성스러운 문헌들의 저자들 중에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영원한 하느님의 실존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거나 하느님의 성격과 필사자와의 관계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무척 놀랐다.

130:3.7 (1433.2) 예수와 가니드는 알렉산드리아에 머무는 동안 박물관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 박물관은 희귀한

물건들을 수집해 놓은 곳이라기보다는 미술, 과학, 문학 등을 가르치는 대학에 더 가까웠다. 그곳에서는 학식 있는 교수들이 매일 강의를 하였고, 당시에는 이곳이 서양 세계의 지적(知的) 중심지였다. 예수는 날마다 가니드에게 그 강의들을 해석해 주었다; 1주일째 되던 어느 날 가니드는 큰소리로 말하였다: “여호수아 선생님, 당신은 이 교수들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당신은 나에게 말해준 위대한 것들을 일어나서 그들에게도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많은 생각으로 인해 흐려져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칭찬 받을 학생이지만, 이 선생들은 너와 내가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영성화 되지 못하는 배우의 자부심은 인간 체험에 있어서 위험한 것이다. 참된 선생은 언제나 배우는 자로 남음으로써 지적인 고결한-순수성을 유지한다.”

130:3.8 (1433.3) 알렉산드리아는 서양의 모든 문화가 혼합된 도시였고, 로마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크고 격조 높은 도시였다. 이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유대인 회당, 알렉산드리아 산헤드린의 행정 중심부인 70명의 통치하는 장로들이 있었다.

130:3.9 (1433.4) 고노드가 사업상 거래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알렉산더라는 한 유대인 은행가가 있었는데, 그의 형제인 필로는 당대에 가장 유명한 종교 철학자였다. 필로는 그리스 철학과 히브리 신학을 조화시키는 훌륭한 사람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가니드와 예수는 필로의 가르침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의 강의에 참석하려고 계획했지만, 이 유명한 그리스 파 유대인은 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머무는 동안 내내 병석에 누워있었다.

130:3.10 (1433.5) 예수는 가니드에게 그리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에서 많은 것들을 칭찬하였지만, 자기 민족 중에서 어떤 사람들의 불확실한 가르침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앙 체계들은, 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찾도록 그리고 영원한 분을 아는 살아있는 체험을 즐기도록 인도해줄 때에만 종교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그 젊은이에게 가슴 깊이 새겨주었다.

제 4 장. 실체에 관한 강연

130:4.1 (1433.6) 그들이 알렉산드리아를 떠나기 전날 밤 가니드와 예수는 플라톤의 가르침을 강의하는 정부 소속 교수들 중

한 사람과 그 대학교에서 오랜 동안 만났다. 예수는 박식한 그 그리스인 교수의 말을 통역했지만, 그리스 철학에 반박하는 입장으로서의 자신의 가르침은 거기에 개입시키지 않았다. 고노드는 그 날 밤 사업 관계로 다른 곳에 있었다; 그래서 교수가 자리를 떠나자 그 선생과 그의 제자는 플라톤의 학설에 관해 심금을 털어놓고 오랫동안 이야기하였다. 예수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보다 본질적인 영적 실체에 대한 그림자라는 이론을 다루어야만 했던 그리스 철학의 어떤 가르침에 대하여 분별화되었음을 인정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그 젊은이의 사고에 좀 더 신뢰할만한 기초를 마련해주려고 애를 썼다; 그리하여 그는 우주에 있어서의 실체의 본질에 관하여 긴 설명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가 가니드에게 말했던 요지를 현대의 언어로 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30:4.2 (1434.1) 우주 실체의 근원은 무한자이다. 유한한 창조의 물질적인 사물들은 파라다이스 원형틀과 영원한 하느님의 우주 마음의 시간-공간 반향(反響)들이다. 물리적 세계에서의 원인성, 지적 세계에서의 자아-의식, 영적 세계에서의 진보하는 자아신분은—우주규모로 구체적으로 투사되고, 영원한 관계성 속에 병합되며,

본질특성의 완전성과 가치의 신성(神性)과 함께 체험되는, 이들 실체는— 최극자의 실체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원인성, 지능, 영 체험에서의 기원적 개인성은, 언제까지나-변화하는 우주 속에서도 변화하지 않는다, 절대적이다. 만물은, 무한한 가치와 신성한 본질특성의 영원한 우주에서 조차도, 모두 변할 수도 있고 또 종종 변하지만, 절대자, 그리고 물질적 지위, 지적인 포용, 다시 말해서 절대인 영적 정체성을 달성한 것은 예외이다.

130:4.3 (1434.2) 유한한 창조체가 진보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은, 우주 아버지를 인식하는 것이며 최극자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후에도 최종 운명을 갖는 그러한 존재들은 물리적 세계의 움직임들과 그것의 물질 현상 속에 있어서의 변화를 계속 체험한다. 그들은 또한 영적 우주를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자아신분의 진보를 여전히 자각하며, 지적 조화우주에 대한 깊어지는 이해와 반응 속에서 의식의 성장을 여전히 인식한다. 오직 완전성, 조화 그리고 의지의 일치 안에서만 창조체는 창조자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창조체가 자신의 유한한 개인적 의지를 항상 창조자의 신성한 뜻에 맞추으로써만 시간 속에서도나 영원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신성의 상태를 그렇게 얻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는,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혼 속에서 언제나 최극이어야 하며 그의 마음을 지배해야 한다.

130:4.4 (1434.3) 눈이 하나 밖에 없는 사람은 결코 원근(遠近)을 감지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눈밖에 갖지 못한 물질적인 과학자나 영적 신비가나 우화(寓話) 작가는, 우주 실체의 진정한 깊이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이해할 수 없다. 창조 체험의 모든 진정한 가치들은 인식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

130:4.5 (1434.4) 마음이 없는 원인성은 조잡하고 단순한 상태에서부터 세련되고 복잡한 상태로 진화할 수 없으며, 또한 영(靈)이 개재되지 않은 체험도 시간에 사는 필사자들의 물질적 마음으로부터 영원히 생존되는 신성한 성격으로 진화할 수 없다. 무한한 신(神)의 특성을 매우 배타적으로 나타내는 우주의 한 가지 속성은, 진보적 신(神) 달성 속에서 생존될 수 있는 개인성의 이러한 끝없는 창조적 증여이다.

130:4.6 (1434.5) 개인성은 조화우주 자질이고, 우주적 실체의 현상이며, 그것은 무제한한 변화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동시에 그리고 그 후로 언제까지나 그러한 모든 변화들의 바로 그 현존 속에 그 정체성을 간직하는 것이다.

130:4.7 (1434.6) 생명은 우주 상황들의 요구와 가능성들에 대한 기원적인 조화우주 원인성의 적응이며, 그것은 우주 마음의 행동과 영이신 하느님의 영적 불꽃의 활동에 의해 존재 안으로 들어온다. 생명의 의미는 그 적응성에 있다; 생명의 가치는—하느님-의식의 높이까지 이르는—그 진보력에 있다.

130:4.8 (1434.7) 우주에 대한 자아-의식적 생명의 잘못된 적응은 조화우주 부조화를 가져온다. 우주들의 경향으로부터의 개인성 의지의 최종적 이탈은 지적인 고립, 개인성의 격리로 종결된다. 내주하는 영 인도자의 상실은 실존의 영적 단절이 잇따라 일어난다. 그래서 지능적이고 진보하는 생명은, 그 자체로서 그리고 저절로, 신성한 창조자의 뜻을 표현하고 있는 목적을 지닌 우주가 실존하고 있음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이 생명은, 우주 아버지를 그 최종적인 목표로 삼으면서, 총합 안에서, 더 높은 가치를 향해 투쟁한다.

130:4.9 (1435.1) 지능에서의 높고 준(準)-영적 사명활동을 제쳐놓고서, 등급(等級)만을 고려할 때, 사람이 소유하는 마음은 동물 차원보다도 높다. 그러므로 동물들은 (경배와 지혜를 가지지 않는) 의식에 대한 의식인 초(超)의식을 체험할 수 없다. 동물의 마음은 오직 객관적인 우주만을 의식한다.

130:4.10 (1435.2) 지식은 물질적인 또는 사실-식별하는 마음의 구체다. 진리는 하느님을 알고있음을 의식하는 영적으로 자질로서 부여된 지성의 권역이다. 지식은 실증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진리는 체험되는 것이다. 지식은 마음의 소유물이다; 그러나 진리는 혼, 진보하는 자아의 체험이다. 지식은 비(非)영적 차원의 기능이다; 한편 진리는 우주들의 마음-영 차원의 한 위상이다. 물질적 마음의 눈은 사실적인 지식의 세계를 감지한다; 그러나 영성화된 지성의 눈은 참된 가치들의 세계를 식별한다. 동조되고 그리고 조화되는 이들 두 관점들이 실체의 세계를

드러내며, 바로 그곳에서 지혜는 진보하는 개인적 체험에 의하여 우주의 현상들을 해석한다.

130:4.11 (1435.3) 잘못(악)은 불완전성의 대가이다. 불완전한 본질특성이나 부적당한 적응의 사실들은, 비판적 관찰과 과학적 분석에 의해 물질적 차원에서 드러나고, 인간 체험에 의해 도덕적 차원에서 드러난다. 악의 현존은 마음의 부정확함과 진화하는 자아의 미성숙함에서 그 증거가 드러난다. 따라서 악은 우주 해석에서의 불완전성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오류를 범할 가능성은 지혜의 획득 속에 즉,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부터 완벽하고 영원한 것으로 또한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부터 최종적이고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려는 계획 속에 선천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잘못은 사람이 파라다이스의 완전성으로 상승하는 우주 길목에서 반드시 마주쳐야 하는 상대적인 미완성에서의 그림자이다. 잘못(악)은 실재하는 우주의 본질특성이 아니며, 그것은 단순히 최극자와 궁극자의 상승하고 있는 차원들에 대한 미완성 유한자들의 불완전의 관계맺음 안에서 상대성이 관찰되는 것에 불과하다.

130:4.12 (1435.4) 비록 예수는 이 모든 것을 그 젊은이가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언어로 그에게 말하였지만,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이 되자 가니드의 눈은 무거워졌고 곧 잠에 떨어졌다. 그들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배를 타고 크레테 섬에 있는 라시아로 갔다. 그러나 그들이 출항하기 전에, 그 젊은이에게는 악에 관한 의문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으며, 예수는 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130:4.13 (1435.5) 악은 하나의 상대성 개념이다. 그것은 무한자의 영원한 실체들에 대한 우주 표현의 살아있는 빛을 가리고 있는 그러한 조화우주에서처럼, 그렇게 유한한 사물과 존재의 유한 우주로 인하여 드리워진, 그림자 속에 나타나는, 불완전성들에 대한 관찰에서 발생한다.

130:4.14 (1435.6) 잠재적 악은, 무한과 영원이 시간-공간-제한을 받으면서 표현되는 것으로서 하느님의 계시의 필요되는 미완성 안에 선천적으로 들어있다. 완벽함의 현존 안에 부분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이, 실체의 상대성을 구성하고 지적 선택에 대한 필요성을 창조하며 영 인지와 반응이라는 가치 차원들을 수립한다. 일시적이고 한정된 창조체의 마음이 파악하는, 무한자에 대한 미완성이고

유한한 개념은, 그 자체로서 저절로 잠재적 악(惡)이다. 그러나 이들 기원적으로 선천적인 지적 부조화와 영적 불충분함에 대한 이치에 맞고 합당한 영적 정화에서, 정당화되지 않는 결함을 증강시키는 잘못은, 실재적 악의 실현과 동등한 것이다.

130:4.15 (1436.1) 모든 정적인, 죽어있는 개념들은 잠재적으로 악이다. 상대적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진리의 유한한 그림자는 계속 움직인다. 정적인 개념들은 변함없이 과학, 정치, 사회, 종교 등의 발전을 지체시킨다. 정적인 개념들은 어떤 지식을 표방하기는 하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진리가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상대성의 개념이 너희를 지나치게 잘못 인도하여 너희가, 조화우주 마음의 지도 아래에 있는 우주의 조화-협동, 그리고 최극자의 영과 에너지로 말미암아 안정되는 통제를 인식하는 것에, 실패하도록 허용하지는 말라.

제 5 장. 크레테 섬에서

130:5.1 (1436.2) 이 여행자들은 섬을 산보하거나 등산하면서 단지 즐기려는 목적만을 가지고 크레테로 갔다. 당시의 크레테 주민들은 그들의 인근 지역으로부터 부러워 할 만한

아무런 평판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가니드는 많은 혼들을 더 높은 차원의 생각과 삶으로 인도하였고, 이것은 후일 예루살렘으로부터 첫 설교자들이 도착하였을 때 복음의 가르침에 대한 빠른 수용을 가능하게 한 토대가 되었다. 바울은 후일 자신들의 교회들을 재조직하기 위해 타이투스를 그 섬으로 보내면서 이들에 관해서 가혹한 말을 하였었지만, 예수는 이 크레테 주민들을 사랑하였다.

130:5.2 (1436.3) 크레테에 있는 산기슭에서 예수는 종교에 관해 고노드와 처음으로 긴 대화를 가졌다. 그 아버지는 깊은 감명을 받은 나머지 이렇게 말하였다. “저 아이가 당신이 하는 말을 무엇이든지 믿는 것은 당연히 여겼지만, 저는 다마스쿠스에서보다도 오히려 예루살렘에 그런 종교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노드가 예수에게 자신들과 함께 인도로 돌아가자고 처음으로 제의한 것은 바로 이 섬에서 머무는 동안이었으며, 가니드는 예수가 그것에 동의하리라는 생각에 매우 기뻐하였다.

130:5.3 (1436.4)

어느 날 가니드가 예수에게 왜 대중을 위한 선생의 일에 헌신하지 않는지를 물었을 때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이야, 모든 것은 그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네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아무리 많은 걱정도 또 그 어떤 조급함의 현시활동도 너를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너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때를 기다려야만 한다. 시간만이, 나무에 달린 꽃과일을 저절로 익게 한다. 시간이 흘러가야만, 한 계절이 지나간 뒤에 다음 계절이 오고, 해가 지고 난 후에 해가 뜨는 법이다. 나는 지금 너와 너의 아버지와 함께 로마로 가는 도중이며,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의 내일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손에 온통 달려 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가니드에게 모세와 그의 40년에 걸친 신중한 기다림과 꾸준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130:5.4 (1436.5)

페어 항구를 방문한 날 가니드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났는데; 이 에피소드에 대한 기억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고향 인도에 있는 특권계급제도를 바꾸기 위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언제나 불러 일으켰다. 어떤 술 취한 주정꾼이 공공 큰 도로에서 노예 소녀를 괴롭혔다. 예수가 그 소녀의 곤경을 보았을 때, 그는 즉시

달려가서 그 소녀를 미친 사람으로부터 구해내었다. 겁에 질린 소녀가 그에게 매달려 있는 동안 그는 강한 오른팔을 내뻗어 그 사람을 떼어놓은 후, 그가 자신의 화난 주먹을 허공으로 휘두르다가 지칠 때까지 그를 잡고 있었다. 가니드는 예수에 도움을 주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지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만류하였다. 비록 그들의 언어는 달랐지만, 그 소녀는 그들의 자비로운 행동을 알 수 있었으며, 그녀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 그 세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가 육신을 입었던 그의 전 일생을 통하여 자신의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가장 가깝게 접촉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날 저녁 왜 술 취한 남자를 때리지 않았는지를 물어오는 가니드에게 설명해야할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었다. 가니드는, 적어도 그 남자가 소녀를 때린 만큼 그도 역시 매를 맞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제 6 장. 두려움에 찬 젊은이

^{130:6.1 (1437.1)} 그들이 산에 올라가던 중에, 예수는 두려움이 많고 풀이 죽은 한 젊은이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적-연합에서 위로와 용기를

받을 수 없었던 이 젊은이는 혼자 있기 위해 그 언덕으로 찾아왔으며; 열등감과 절망감에 더욱 빠져들고 있었다. 이러한 자연적인 성향은, 그가 12살 때 아버지를 잃고서 성장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의해 증강되었다. 그들이 만났을 때 예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안녕하신가, 나의 친구여! 이처럼 아름다운 날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나? 만약 걱정거리가 있으면, 아마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조금이라도, 내가 봉사를 제공하면 그것이 내게 실제 즐거움이 될 것이다.”

130:6.2 (1437.2) 그 젊은이는 이야기하기를 사양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그의 혼에게 다시 접근하면서 말하였다: “나는 네가 사람들을 피해 이 산으로 올라온 것을 납득할 수 있다; 물론 나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나는 네가 이 언덕들의 길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 오솔길들의 방향을 알고 있다면, 혹시 피닉스로 가는데 가장 좋은 길을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이 젊은이는 현재 이 산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피닉스에 이르는 길을 예수에게 말해주는 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모든 오솔길들을 땅바닥에 그리면서 각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예수가 작별

인사를 마친 후 정말로 떠나려는듯 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그는 깜짝 놀랐고 또한 호기심이 발동하였다: “나는 네가 울적하게 홀로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내가 피닉스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을 찾도록 그런 관대한 도움을 너에게서 받아들였는데, 네가 이 산기슭에 서성이면서 가슴 속에서 간절하게 찾고 있는 운명의 목표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에 대한 안내와 도움을 바라는 너의 청원에 대하여 내가 그 어떤 대답도 시도해 보지도 않고 별 생각없이 가버리는 것은 과히 잘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네가 여러 번 그 길을 지나다녀서 피닉스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을 잘 알고 있는것처럼, 나도 역시, 네가 지금 실망을 겪는 희망의, 좌절을 겪는 열망의 도시에 이르는 길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도움을 원했으므로, 나는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는 거의 압도 당하여 더듬거림을 참으며, “하지만—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는데요.—”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젊은이의 어깨에 손을 부드럽게 얹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다, 아이야. 말로서가 아니라 너의 그 간절한 표정으로 나의 가슴에 요청하였다. 애야, 자기 동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너의 실의와 절망의 표정 속에 도움을 요청하는 강한 청원이 있음이 느껴진다. 여기 잠시동안 나와 함께 앉아서, 사람의 형제신분에서의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느님에 대한 봉사에서의, 자아의 슬픔에서 사랑 넘치는 행동의 기쁨으로 인도되는, 봉사 오솔길과 행복 고속도로에 관한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130:6.3 (1437.3) 이때가 되어서 젊은이는 예수와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매우 간절해졌으며, 그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슬픔과 좌절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 달라고, 자기에게 도움을 달라고 예수에게 간청하였다. 예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친구여! 일어나라! 남자답게 일어서라! 네가 조그만 적들에게 둘러싸이고 많은 장애물로 뒤쳐져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세상과 우주에서 큰 것과 실제적인 것이 네 편에 있다. 태양은 매일 아침 떠올라 땅에서 가장 힘 있고 번영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과 똑같이, 너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느냐? 보아라,—너는 튼튼한 육체와 강인한 근육을 갖고 있다.—너의 육체적 자질은 평균을 넘는다. 물론 네가 이런 산기슭에 앉아서 실제이거나 공상이거나 간에 자신의 불운을 한탄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육체는 단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약 위대한 일들이 이뤄지기를 기다리는 곳으로 서둘러 떠난다면, 너는 그 육체를 사용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다. 너는 너의 불행한 자아로부터 달아나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너와 너의 삶의 문제들은 실질적인 것이다; 네가 살아있는 한, 너는 그것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네 마음이 맑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아라. 너의 강인한 육체는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지적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너의 마음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에 맞춰라; 너의 지성이 너를 위해 일하도록 가르쳐라; 생각 없는 동물처럼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상태를 이제부터 더 이상 허용하지 마라. 네 마음이 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런 비열한 두려움에-노예로 그리고 속박된 하인으로 패배와 좌절에 끌려왔던 지금까지의 너의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하느니, 이제부터는 네 마음이 용감한 동맹군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모든 것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너의 실제적인 성취의 잠재력은 네 안에 살고 있는 영이며, 이 영은 만약 네가 두려움의 족쇄에서 너의 몸을 해방시키고 그로써 살아있는 신앙의 힘-현존에 따라서 너의 영적 본성으로 하여금 비활성이라는 악에서

벗어나는 너의 해방을 시작하라고 허용한다면, 너의 마음을 촉발시키고 영감을 일으켜 스스로를 통제하고 몸을 활성화할 것이다. 그리고는 곧바로, 이 신앙은 네 가슴 안에서 탄생되는 네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의식 때문에, 네 혼을 넘쳐흐르기까지 즉시 온통 채우는, 새롭고도 모든 것을-지배하는, 너의 동료에 대한 사랑이라는 억누를 수 없는 현존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정복할 것이다.

130:6.4 (1438.1) "아이야, 너는 오늘 다시 태어났다. 신앙의 사람, 용기의 사람 그리고 사람에 대한, 하느님을 위한 봉사에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다시-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네 속에 내재하는 생명에게 재조절 되었을 때, 너는 또한 우주에 대해서도 재조절 되는 것이다; 너는 다시 태어난 것—영의 탄생—이며, 그러므로 너의 전체 인생은 승리하는 성취 속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걱정은 너를 활기차도록 할 것이다; 실망은 너에게 박차를 가하게 할 것이다; 난관은 네가 도전하도록 할 것이다; 장애물은 네가 자극을 받도록 할 것이다. 젊음이여, 깨어나라! 굶실거리고 도망 다니는 겁쟁이의 인생에 작별을 고하라. 그리고 서둘러 너의 임무로 돌아가서, 육체를 가진 하느님의 아들이로서, 이 세상에서 사람에 대한 기쁨 있는 봉사에

전념하고 영원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뛰어나고 영원한 봉사에 운명지워진 필사자로서 살아가기 바란다.”

130:6.5 (1438.2) 그리고, 운이 좋았던 이 젊은이는 나중에 크레테의 그리스도교 영도자가 되었고, 크레테 신자들을 향상시키는 일에 있어서 타이투스에게 긴밀한 협력자가 되었다.

130:6.6 (1438.3) 그 여행자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고, 상쾌한 기분으로 어느 날 정오에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를 향해 항해를 시작했으며, 키레네에서는 이틀을 머물렀다. 이곳에서 예수와 가니드는, 짐을 실은 소달구지에 받쳐서 부상을 입은 루푸스라는 젊은이에게 응급치료를 해주게 되었다. 그들은 그 젊은이를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 시몬에게 데려다 주었는데,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한 때 친절을 베풀었던 그 나그네의 십자가를 후일에 로마 병사의 명령에 의해 자신이 대신 지고 가게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하였다.

제 7 장. 카르타고에서—시간과 공간에 대한 강연

130:7.1 (1438.4) 카르타고를 여행하는 동안, 예수는 자기 동료 여행자들과 함께 사회와 정치와 상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으며; 종교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 고노드와 가니드는 예수가 훌륭한 이야기꾼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였고, 그들은 갈릴리에서 보낸 그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재촉하였다. 그들은 또한 그가 예루살렘이나 다마스쿠스에서가 아닌 갈릴리에서 성장한 것도 알게 되었다.

130:7.2 (1438.5) 가니드는 그들이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에게 매료되었던 점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예수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의 선생은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이 원한다고 네가 확신하는 일들을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예수는 오래된 유대인 속담을 인용하였다. —“친구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먼저 친절을 베풀어야만 한다.”

130:7.3 (1439.1) 카르타고에서 예수는 미트라교의 사제 한 사람과 불멸에 관해서, 그리고 시간과 영원에 관해서 길고도 기억에 남을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페르시아인은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를 실제로 원하였다. 이 날 그의 많은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을 오늘날의 언어로 바꾼다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0:7.4 (1439.2) 시간이란 창조체 의식에 의해 인식되어지는 현세적 사건들이 흘러내려가는 개울이다. 시간이란, 그것에 따라 사건들이 인식되고 분리되는 연속적-배열에 붙여진 하나의 이름이다. 공간의 우주는 시간-관련 현상으로서, 그것은 파라다이스의 고정된 거주지 바깥에 있는 어떤 내부적 위치로부터 조망되어진다. 시간의 움직임은 하나의 시간 현상이면서도 공간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어떤 것과 관계될 때에만 드러난다. 우주들 중의 우주 안에서 파라다이스와 그것의 신(神)들은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한다. 인간이 사는 세계들에서, 인간 개인성(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영이 거주하고 그것에서 기원된)만이 오직, 일시적인 사건들의 물질적 순차를 초월할 수 있는 실체와 물리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130:7.5 (1439.3) 사람과는 달리, 동물들은 시간을 느끼지 못하며, 심지어는 사람에게서도, 그의 부분적이고 제한된 시야

때문에, 시간은 사건들의 연속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사람이 좀 더 상승함에 따라, 좀 더 안쪽으로 깊이 들어감에 따라, 이 사건의 진행에 대한 넓어지는 시야는, 그것의 전체성 속에서 그것이 점점 더 식별되는 그러한 것이다. 처음에는 사건들의 연속체로 나타난 것이 그 다음에는 전체적이며 완전하게 관계된 순환으로 보일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한 때 사건들을 일직선적인 순차로 의식하였던 것은 점점 더 순환적인 동시성으로 바뀔 것이다.

130:7.6 (1439.4) 시간에 의해 조건 지워짐에 따라서 공간에 대한 개념은 일곱 가지로 달라진다. 공간은 시간에 의해 측정되지만, 시간은 공간에 의해 측정되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공간의 실체를 인식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공간은 우주 대상물들의 관계성 속에 있는 변화에 대한 단순한 지적 개념이 아니다. 공간은 텅 빈 것이 아니며, 사람이 아는 유일한 것은, 공간을 부분적으로라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이라는 점이다. 마음은 물질 대상들에 대한 공간과 관련된 개념과 관계없이 작용할 수 있다. 공간은 창조체 지위의 모든 존재에게 상대적이고 비교적 유한하다. 의식이 일곱 개의 조화우주 규모들에 대한 인식에 가까워질수록, 잠재적인

공간에 대한 개념은 더욱 궁극위에 가까워진다. 그러나 공간의 잠재는 절대 차원에서만 진정한 궁극이다.

130:7.7 (1439.5) 우주적 실체가 확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상승하고 있고 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조화우주 차원들에서 항상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궁극적으로, 생존되는 필사자들은 일곱-차원의 우주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성취한다.

130:7.8 (1439.6) 물질적으로 기원된 마음이 갖는 시간-공간 개념은, 의식하고 인식하는 개인성이 우주들의 차원들로 상승함에 따라 연속적인 확대들을 겪도록 운명되어 있다. 사람이 실존에 대한 물질적인 면들과 영적인 면들 사이에 개재하는 마음을 획득할 때, 시간-공간에 대한 그의 관념들은 인식의 본질특성과 체험의 양에 대해서처럼 함께 거대하게 확대될 것이다. 진보하는 영 개인성의 확대되는 조화우주 개념들은, 의식의 넓이와 통찰력의 깊이 둘 모두의 증강에 기인한다. 그리고 개인성이 신(神)과-비슷한 초월적 차원들에 이를 때까지, 위로 그리고 안쪽으로 나아감에 따라, 시간-공간 개념은 절대자들의 무(無)시간 그리고 무(無)공간 개념들에 점점

더 접근해 갈 것이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초월적인 성취의 정도에 맞추어서, 궁극적 운명의 자녀들은 절대적 차원에 대한 이 개념들을 선망하게 될 것이다.

제 8 장. 나폴리와 로마로 가는 길에서

^{130:8.1 (1440.1)}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서 첫 번째로 머문 곳은 말타 섬이었다. 여기에서 예수는, 낙심하고 위축되어 있는 클라우두스라는 이름의 청년과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사람은 자살할 생각을 깊이 해왔었지만, 다마스커스의 서기관과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의 대장부로서 일생을 대처하겠으며; 내가 비겁자 노릇을 하는 것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나의 민족에게로 되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곧 견유학파의 열렬한 사제가 되었으며, 나중에는 베드로와 손을 잡고 로마와 나폴리에서 설교하였고, 베드로가 죽은 뒤에는 스페인에까지 가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는 말타에서 자신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준 사람이, 후에 자신이 세상의 해방자라고 선포한 그 예수라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하였다.

130:8.2 (1440.2) 시라큐스에서 그들은 일주일 전체를 보냈다.

이곳에 그들의 멈춤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은, 예수와 그의 동행자들이 머문 여인숙의 주인이었던, 타락한 유대인인 에즈라의 갱생이었다. 에즈라는 예수의 접근에 매료되었고, 그리고는 자신이 이스라엘인의 신앙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도움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나는 아브라함의 참된 아들이 되고 싶지만, 하느님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절망을 하소연했다. 예수는 말하였다: "만약 네가 참으로 하느님을 찾아내고 싶다면, 그 소망 자체가 이미 네가 그를 찾아냈다는 증거이다. 너의 문제는 네가 하느님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니, 이는 아버지께서 이미 너를 찾아내었기 때문이다; 너의 문제는 단지 네가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했던, '너희가 나를 전심을 다해 찾을 때, 너희는 나를 구하며 나를 만나리라.'라는 말을 읽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그 선지자가 다시, '나는 너희에게 나를 알 수 있는 가슴을 줄 것이고, 그리하여 내가 너희의 주님이니, 그리하여 너희는 내 백성에 속하겠고, 그리하여 내가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임을 알도록 하겠노라,'라고 쓴 것을 읽지 않았는가?

또한 너는 성서에, '그가 사람을 내려다보며, 그리하여 혹시 누구라도 말하기를: 나는 죄를 지었고 그리고 옳은 것을 왜곡하였고,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하느님은 그 사람의 혼을 어둠으로부터 구원할 것이고, 그리하여 그가 빛을 볼 것이라'라고 말하는 것을 읽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즈라는 하느님을, 자신의 혼의 만족에 이르기까지 찾아내었다. 후일에 이 유대인은 어느 부유한 그리스인 개종자와 관계적-연합하면서, 시라큐스에 첫 번째 그리스도교 교회를 건설하였다.

130:8.3 (1440.3) 메시나에서 그들은 단지 하루밖에 머물지 못하였지만, 이 기간은 과일 행상을 하는 한 어린 소년의 일생을 변화시키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으며, 예수는 그 소년에게 과일을 산 대신 생명의 빵을 주었다. 그 소년은 자신의 어깨에 손을 얹고 친절하게 바라보면서 하였던 예수의 말을 결코 잊지 않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잘 있어라. 나의 소년아. 자라서 어른이 되면서 훌륭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육체를 키우는 것을 배운 뒤에는 혼을 키우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너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며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소년은 미트라교에 들어갔다가 후일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돌아섰다.

130:8.4 (1440.4) 드디어 그들은 나폴리에 도착하였고, 자신들의 목적지인 로마가 멀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고노드는 나폴리에서 거래해야 할 많은 사업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는 통역하는 시간외에는 가니드와 도시의 여기저기를 방문하고 답사하는데 여가 시간을 보냈다. 가니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는 데는 거의 명인이 되어갔다. 그들은 그 도시에 사는 많은 빈곤자들을 발견하였고 여러 번 구제금을 주었다. 예수가 거리의 한 걸인에게 동전 한 닢을 주었을 뿐, 그에게 잠시 멈추어 서서 평강의 따뜻한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로 떠나면서 한 그의 말의 의미를 가니드는 결코 납득하지 못하였다. 예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말의 뜻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말을 낭비해야 되겠는가? 아버지의 영은, 아들 된 신분의 힘을 갖지 못한 사람을 가르치거나 구할 수가 없다.” 예수가 의미했던 것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에게는 영적 인도함을 따를 힘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130:8.5 (1441.1) 나폴리에서는 별다른 뚜렷한 체험을 하지 않았다; 예수와 젊은이는 도시 전체를 누비며 수많은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에게 많은 미소로써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130:8.6 (1441.2) 이곳으로부터 그들은 카푸아를 거쳐 로마로 갔으며, 카푸아에서 사흘을 머물렀다. 그들은 짐을 실은 동물들을 이끌고 아피아 도로를 통하여 로마로 갔으며, 그 세 사람은 제국의 여왕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인 로마를 보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제 131 편 세계의 종교들

131:0.1 (1442.1) 예수와 고노드 그리고 가니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머무는 동안, 가니드는 자신의 많은 시간과 자기 아버지의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하느님에 관한 그리고 그와 필사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세계 종교들의 가르침들을 수집하였다. 가니드는 신(神)들에 관한 종교적 교리들을 요약하기 위하여 60명 이상의 학식 있는 번역가들을 고용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함에 있어서 명백하게 밝혀 두어야 할 점은, 일신교를 표방하는 이 모든 가르침들은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보낸 선교사들의 설교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며, 그 선교사들은 유일한 하느님—지고자—에 대한 교리를 땅 끝까지 전파하기 위해 자신들의 살렘 본부로부터 파견되었다.

131:0.2 (1442.2) 이것은 가니드의 서류 중에서 발췌하여 제시하는 것이며, 그 서류는 그가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에서 준비하였던 것이고, 그가 죽은 후 몇 백 년 동안이나 인도에 보존되어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10개의 항목으로 이 자료들을 모았다:

제 1 장. 견유주의

131:1.1 (1442.3) 멜기세덱 제자들의 남아있는 가르침들은, 유대인의 종교에 나타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견유학파의 교리 속에 가장 잘 보존되어 있었다. 가니드가 수집한 내용 속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용되어 있었다:

131:1.2 (1442.4) "하느님은 최극이시며; 하늘과 땅의 지고자이시다. 하느님은 완전해진 영원의 순환계이시며, 우주들의 우주를 다스리신다. 그는 하늘들과 땅의 유일한 조물주이시다. 그가 어떤 것을 명하시면, 그것이 존재하게 된다. 우리의 하느님은 유일한 하느님이시며, 그는 연민이

가득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다. 높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은 우리의 하느님을 닮은 것이다. 지고자는 하늘과 땅의 빛이시며; 동, 서, 남, 북의 하느님이시다.

131:1.3 (1442.5) "땅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최극자의 빛나는 얼굴은 장엄과 영광 속에 거한다. 지고자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며 시작이자 모든 것의 끝이시다. 오직 한 분 하느님만이 존재하시고 그의 이름은 진리이시다. 하느님은 자아-실존이시며, 그에게는 분노와 적의가 전혀 없으시고, 그는 불멸하시며 무한하시다. 우리의 하느님은 전능하시며 관대하시다. 그는 여러 가지로 현시활동을 하시지만, 우리는 오직 하느님 그 자신만을 경배한다. 하느님은 모든 것—우리의 비밀들과 우리의 맹세들—을 알고 계시며, 또한 우리 각자가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의 힘은 모든 것들에게 공평하시다.

131:1.4 (1442.6) "하느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며, 그를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신실한 보호자가 되신다. 그는 그를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모든 창조물은 지고자의 힘 안에 존재한다. 그의 신성한

사랑은 그의 힘의 거룩함으로부터 솟아나오며, 애정은 그의 위대함의 힘에서 발생된다. 지고자는 몸과 혼의 연합을 명하셨으며, 그 사람에게 자신의 영을 자질로서 부여하셨다. 사람이 행하는 것은 끝이 있지만, 창조자가 하시는 것은 언제까지나 지속된다. 우리는 사람의 체험으로부터 지식을 얻는 반면에, 지혜를 얻는 것은 지고자에 대한 깊은 사색을 통해서이다.

131:1.5 (1443.1) "하느님은 땅에 비를 내리시고, 태양을 빛나게 하시며, 곡식의 싹을 틔우시고, 우리에게 현재의 일생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좋은 것들로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신다. 우리의 하느님은 위대한 권한을 누리시며, 그의 이름은 탁월함이고, 그의 본성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너희가 병들었을 때 너희를 고치시는 이는 지고자시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 선함이 충만하시며; 우리에게 지고자와 같은 친구는 없다. 그의 자비는 모든 곳을 채우시고, 그의 선함은 모든 혼들을 감싸신다. 지고자는 변함이 없으시며; 필요할 때 항상 우리의 조력자이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지고자께서 얼굴을 보이시고, 우리 하느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 너희가 사람에게서는 자신을 숨길 수 있겠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 하느님은 우리에게서 먼 곳에 계시지 않으시며; 그는 전재(全在)이시다. 하느님은 모든 장소에 충만하시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의 가슴속에 살아 계신다. 창조물은 창조자 안에 있고, 창조자는 자기 창조물 안에 계신다. 우리가 지고자를 찾으면, 우리 가슴속에서 그를 발견한다. 너희가 소중한 친구를 찾으려고 하면, 너희는 그를 너희 혼 속에서 발견한다.

131:1.6 (1443.2) “하느님을 아는 자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바라보며; 그들은 모두 그의 형제들이다. 육신적인 자기 형제들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그 대가로 피곤함을 느낄 뿐이다. 자신의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순수한 가슴을 지닌 사람들은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느님은 진실한 자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정직한 가슴을 가진 자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131:1.7 (1443.3) “너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진리를 사랑함으로써 실수를 뒤집어엎고 악을 극복하라.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악에 대하여 선(善)을

행하라. 주님 하느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며;
용서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를 사랑하자. 하느님의 사랑과
그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두 형제들이다. 하느님은 그들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자신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131:1.8 (1443.4)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희가 그의 이름을
믿는 것만큼, 너희 기도가 상달될 것이다. 지고자를
경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온 세상과
우주들은 지고자를 경배한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기도로써 감사를—경배의 경지에 이르기까지—드려라.
간절한 기도로 드리는 경배는 악을 물리치고 죄를
막아준다. 항상 그 지고자의 이름을 칭송하자. 지고자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우주로부터 가릴 수
있다. 너희가 깨끗한 가슴을 지니고 하느님 앞에 설 때,
너희는 모든 창조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지고자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어머니 같으시며, 그는 지상에
있는 그의 자녀들인 우리를 실제로 사랑한다. 우리의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며, 우리의 발걸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우리의 손을 잡고 자신에게로 인도한다. 하느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며; 자기 이름을 섬기도록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131:1.9 (1443.5) “지고자에 대한 신앙이 너희의 가슴속으로 들어가 있다면, 너희 일생의 모든 나날을 통하여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믿음 없는 자들의 번영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고 악을 꾸미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혼으로 하여금 죄에서 멀리 하게 하고 구원의 하느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라. 방황하는 필사자들의 지친 혼은 지고자의 품안에서 영원한 쉼을 찾으며; 현명한 자는 신성한 포옹을 그리워한다; 땅의 자녀들은 우주 아버지의 팔에 안전하게 거하기를 고대한다. 고귀한 사람은 필사자들의 혼이 최극자의 영광 섞여 하나가 되는 높은 상태를 추구한다. 하느님은 의로우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심은 것으로부터 결실을 받아들이자 못한 것은 다음 세상에서 받아들일 것이다.”

제 2 장. 유대교

131:2.1 (1444.1) 팔레스타인의 켄-사람은 멜기세덱의 가르침 대부분을 건져내었으며, 유대인에 의해 보존되고 수정된 이 기록들로부터 예수와 가니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31:2.2 (1444.2)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늘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가 창조한 모든 것은 보기에 매우 좋았다. 주님은 바로 하느님이시며;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 없이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슴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느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바다를 덮은 물처럼, 땅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다. 하늘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한 일을 나타낸다.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나타낸다. 그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씀이나 언어가 없다. 주님의 일은 위대하시며, 그는 지혜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주님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 없다. 그는 별들의 숫자를 아시며;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을 모두 부르신다.

131:2.3 (1444.3) "주님의 힘은 크시며 그의 납득은 무한하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들이 땅보다 더 높은 것같이, 나의 방법은 너희의 방법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느님은 자기 안에 빛이 거하므로 깊고 비밀스러운 것을 드러내신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총이 많으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함과 진실이 풍성하시다. 주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온유한 자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의 선함을 맛보고 바라보라! 하느님을 신뢰하는 자는 복되다. 하느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며, 환난 속에 함께 거하시는 도움이시다.

131:2.4 (1444.4) "주님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 위에

영속으로부터 영속까지 임하며, 그의 의는 우리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른다.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연민의 정이 풍성하시다. 주님은 모든 것에 선하시고, 그의 부드러운 자비는 그의 모든 창조물을 덮으시며; 그들 가슴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 내가 하느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신성한 현존으로부터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영원히 거하시는 높고 존귀한 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눕우치고 가슴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아무도 우리
하느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못하니, 그가 곧 하늘과
땅을 채우셨기 때문이다.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기쁨을
향유하라.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말하게 하라: 주님께서서
다스리신다! 언제까지나 그의 자비가 지속되리니,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라.

131:2.5 (1444.5) "하늘들은 하느님의 의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민족이고 그의
풀밭에 있는 양이다. 그의 자비는 영속하며 그의 진실은
모든 세대마다 계속되신다. 우리 하느님은 모든 나라들의
총독이시다. 그의 영광으로 땅을 가득 채워라! 그의 선함과
사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의 놀라운 선물을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라!

131:2.6 (1444.6) "하느님은 사람을 신성한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그의 사랑과 자비로 관을 씌우셨다. 주님은 의의
길을 아시지만,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의 길은 망할 것이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됨이다; 최극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전능자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한다: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하라.' 자부심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영은 몰락의 앞잡이임을 잊지 말라. 자신의 영을 다스리는 자는 한 도시를 점령하는 자보다 강하다. 주님 하느님, 거룩한 이가 말씀한다: '너희가 돌이켜 영적 평안에 이르러야 구원을 얻을 것이며, 고요함과 확신 속에서 네가 힘을 얻을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달음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으며, 걸어가도 지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너희에게 두려움으로부터 휴식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낙담치 말라,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요, 너에게 도움을 주리라, 그렇다, 나의 정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131:2,7 (1445.1)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시다. 하느님은 우주의 주인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모두 보존한다. 그의 의는 산과 같고, 그의 판단은 깊은 바다와 같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며, 그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것이다. 아침에는 자애로움을 보내어 보이시고 밤마다 신성한

충실하심을 보이시니; 주님께 감사하고 지고자를 찬송하라. 하느님의 왕국은 영속하는 왕국이니, 그의 영토는 모든 세대에 두루 이어진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는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한다.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정의의 길로 인도한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害)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죽는 날까지 선함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며, 내가 언제까지나 주님의 집에 거할 것이다.

131:2,8 (1445:2) "야훼는 내 구원의 하느님이시므로; 나는 그 신성한 이름을 신뢰할 것이다. 나는 온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믿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범사에 그를 인정할 것이며, 그가 나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은 신실하시고; 그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이행하시며; 의로운 자는 그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네가 편치 않은 것은 네 문 앞에 죄가 놓여있기 때문이다; 악을 밟 갈고 죄를 뿌린 자들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네가 네 가슴에 사악한 불의를 품으면, 주님께서 네 말을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만약 네가 하느님께 죄를 범하면 너는 네 자신의 혼에게도 그릇된 것이다. 하느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이든 악이든 판단하실 것이다. 사람은 그 가슴에 품은 생각에 따라, 그 됨됨이가 정해진다.

131:2.9 (1445.3) "주님은 자기에게 성심으로 진실하게 탄원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 울음이 밤 동안에 계속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즐거운 가슴은 약처럼 좋은 것이다. 하느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므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말했다; '나 외에 다른 하느님이 없으니, 나는 공의의 하느님이며 구원자이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으라. 너희가 나를 구하면, 전심을 다하여 나를 찾는다면, 나를 만나리라.'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받으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악한 불의를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둘 것이며, 바람을 심는 자는 광풍을 거둘 것이다.

131:2.10 (1445.4) "주님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 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 지라도 흰 양털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으며;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은 것은 바로 너희가 지는 죄들 때문이다. 하느님은 내 안색을 치유하는 분이시며, 내 혼의 기쁨이시다. 영원한 하느님은 나의 힘이시며;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그 아래에는 영속하는 팔이 있다. 주님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자에게 가까우시며; 어린아이 같은 영을 가진 모든 자를 구원한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너의 길을 주님께 맡기면—그를 신뢰하면- 그가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지고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것이다.

131:2.11 (1445.5)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지 말라. 네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내 자녀들을 아낌없이 사랑할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너희도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의인의 길은 밝은 빛과 같아서, 완전한 날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빛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언제까지나 비칠 것이다. 악인은 자신의 악한 길을, 불의한 자는 자신의 모반하는 생각들을 버려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내게 돌아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들을 널리 용서할 것이다.'

131:2.12 (1446.1)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을 소유한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너희는 온 가슴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내 앞에 다른 하느님들을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네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31:2.13 (1446.1)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이웃을 제 자신처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무덤에서 살려낼 것이다; 너를 죽음에서 구원할 것이다. 나는 너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또한 의를 베풀 것이다. 내가 땅 위에 있는 나의 창조체들에게 너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영속하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와 같이 되어 파라다이스에서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살자고 너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제 3 장. 불교

131:3.1 (1446.3) 가니드는, 불교가 하느님 없이도, 개인적이거나
우주적인 신(神) 없이도,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종교에 가까이 와 있었는지를 알고는 충격을 받았다.
어쨌든 그는, 인도에서 부처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활동한 멜기세덱 선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초기 신조들의 기록을 찾아내었다.
예수와 가니드는 불교 문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발췌하였다:

131:3.2 (1446.4) “순수한 가슴으로부터 나온 기쁨은 무한자에게
이를 것이다; 나의 존재 전체는 죽음을 초월한 기쁨으로
평화로우 될 것이다. 나의 혼은 만족으로 가득 차고, 나의
가슴은 평화스런 신뢰의 지복으로 넘친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안정 속에
거하며, 나의 적들은 나의 가슴을 흔들 수 없다. 나는 내
확신의 열매로 만족한다. 나는 불멸에 쉽게 접근하는 길을
발견하였다. 나는 오랜 여정에서도 나를 붙들어 줄 신앙을

위해 탄원한다; 내세로부터 온 신앙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나는 안다. 내 형제들이 불멸자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다면 번영하리라는 것과, 심지어는 겸양과 정직과 지혜와 용기와 지식과 인내심을 주는 그 신앙으로 자라갈 것임을 나는 안다. 슬픔을 내어버리고 두려움을 용납하지 말자. 신뢰를 통해서 진정한 의와 순수한 사람다움을 간직하자. 공의와 자비에 대해 명상하는 법을 배우자. 신앙은 사람의 진정한 재산이다; 덕행과 영광의 자질이다.

131:3.3 (1446.5) “불의는 비천한 것이며 죄는 비열한 것이다. 악은, 생각 속에 있든지 밖으로 드러나든지, 타락시키는 것이다.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는 것처럼, 악의 길에는 고통과 슬픔이 뒤따른다. 물질적 사물의 본체에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처럼, 순수한 생각과 고결한 삶에는 행복과 평화가 따라온다. 악(惡)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 생각의 소산이다. 죄가 없는 곳에서 죄를 보는 것은 악이다; 죄가 있는 곳에서 죄를 보지 못하는 것도 악이다. 악은 거짓된 교리의 길이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악을 피하는 자는, 진리를 만남으로써 기쁨을 얻을 것이다. 죄를 혐오함으로써 너희의 불행을 마감하라. 너희가 고귀한 이를 바라볼 때, 전심으로 죄에서 떠나게 된다. 악에 대하여

어떤 핑계도 하지 말라; 죄에 대하여 어떤 변명도 하지 말라. 과거의 죄를 고치려는 노력을 통하여, 너희는 미래에 다가올 죄의 흐름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 절제는 참회에서 탄생된다. 고귀한 이에게 모든 결함을 남기지 말고 고백하라.

131:3.4 (1447.1) "즐거움과 기쁨은 선한 행위의 보상이며 불멸자의 영광에 이른다. 너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유로움을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너희의 종교에 대한 신앙이 너희 가슴을 해방시키면, 마음이 산과 같이 안정되어 흔들리지 않게 되면, 혼의 평화가 깊은 강물처럼 고요하게 흐를 것이다.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탐심과 시기심과 증오심과 재물에 대한 미혹으로부터 언제까지나 자유롭다. 신앙이 더 좋은 일생에 대한 에너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인내심을 갖고 너희 자신의 구원을 위해 정진해야 한다. 만약 너희의 최종적인 구원에 대해 확신한다면, 너희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내면에서 솟아 나오는 가슴의 확신을 키워라, 그리하면 영원한 구원의 황홀함을 즐기게 될 것이다.

131:3.5 (1447.2) “어떤 종교인도, 나태하고 게으르고 연약하고 쓸데없고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상태에 처해 있는 한에는, 불멸의 지혜의 깨우침을 얻기를 바랄 수 없다. 그러나 사려 깊고 신중하고 반성하며 열렬하고 진지한 사람은—그가 아직 땅에 살고 있을 동안에라도—, 신성한 지혜로부터 나오는 평화와 해방의 최극의 깨우침을 얻을 것이다. 기억하라, 모든 행동은 반드시 그 보응을 받아들인다. 악은 슬픔으로 끝나고, 죄는 고통으로 끝난다. 기쁨과 행복은 선한 생활의 결과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도 자신의 악행이 무르익을 때까지는 즐거운 시절을 지낼 수 있지만, 피할 수 없이 악한-행동에 대한 충분한 결실을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그 가슴속에: ‘그릇된 행동의 벌은 나에게서 이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행한 것은, 지혜로운 심판으로 인하여, 모두 너희에게 행해질 것이다. 너희의 주위 사람들에게 행한 불공정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창조체는 자기 행위로 인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131:3.6 (1447.3) “어리석은 자는 그 가슴에서 말하기를 ‘악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리라’고 한다; 그러나 안전함은 오직 그 혼이 질책을 갈망하고 그리고 마음이 지혜를 찾을 때에만

발견될 수 있다. 지혜로운 자란, 자기의 적들에게도 친절하게 행하고, 난리 중에도 조용하게 행하며, 탐욕자들 속에서 너그러운 고귀한 혼을 말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들판에 자라는 잡초와 같다. 이기심은 결국 슬픔을 부르며; 실 새 없는 걱정은 죽음을 부른다. 유순한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복종시킨 자는 가장 위대한 전사이다. 매사에 자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덕을 쌓으며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자만이 우월한 개인이다. 분노나 미움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사람에게도 가혹하게 말하지 말라. 가득 찬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다. 지혜롭게 주어진 것은 잘 지켜진다.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하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악에게 선으로 갚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131:3,7 (1447,4) “의로운 혼은 지상의 모든 주권을 가진 것보다 더욱 소중한 존재이다. 불멸은 성실함의 목표이다; 죽음은 경솔한 삶의 종말이다. 진지한 자는 죽지 않으며, 경솔한 자는 이미 죽은 것이다. 죽음 없는 상태에 대해 관심을 두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삶을 억지로 산 사람은 죽음 후에도 행복을 거의 발견하지 못한다. 사심-없는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며, 거기서 그들은 무한한 해방의 축복 안에서

기쁨을 향유하고, 고귀한 관용 속에서 계속 성장한다. 올바르게 생각하며 고귀하게 말하고 사심-없이 행동하는 모든 필사자는 이 짧은 일생 동안 이곳에서 덕을 즐길 뿐만 아니라, 몸이 괴멸되고 난 뒤에도 천상의 복락을 계속 누릴 것이다.”

제 4 장. 힌두교

131:4.1 (1447.5) 멜기세덱의 선교사들은 어디를 가든지 유일신에 대한 가르침을 전파하였다. 일신교를 숭상하는 이러한 교리의 대부분은, 이전에 있었던 다른 개념들과 함께, 힌두교의 후대 교훈들 속에 체현되기 시작했다. 예수와 가니드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발췌하였다:

131:4.2 (1448.1) “그는 위대한 하느님이며, 모든 방면에서 최극이시다. 그는 만물을 포용(包容)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는 창조자이시며 우주들의 우주의 통제자이시다. 하느님은 한 분이신하느님이시다; 그는 홀로 이시며 자기 자신으로 그 이시다; 그는 유일한 존재이시다. 이 유일한 하느님이 우리의 조물주이시며 혼의 최종적인 운명이 되신다. 최극이신 분은 너무나 찬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빛들 중의 빛이시다. 모든 가슴과 모든 세계가 이

신성한 빛에 의해 비추어진다. 하느님은 우리의 보호자—자신의 창조체들의 편에 서 계시다—이시며, 그를 알게 되는 자는 불멸하게 된다. 하느님은 에너지의 큰 근원이시며; 위대한 혼이시다. 그는 우주적 주권을 만유 위에 펼친다. 유일한 이 하느님은 사랑이 넘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경배 받을 만하시다. 우리의 하느님은 힘에 있어서 최극이시며 더없이 높은 처소에 거한다. 진정한 이 개인은 영원하고 신성하다; 하늘에서 최초의 주님이시다. 모든 예언자들은 그를 환호하였고, 그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오셨다. 우리는 그를 경배한다. 오, 최극이신 분이시여, 존재들의 근원이시며, 창조의 주님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시여, 당신이 내재적으로 거하시는 그 힘을 당신의 창조체인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하느님은 태양과 별들을 만드셨고; 밝으시며 순수하시며 자아-실존적이시다. 그의 영원한 지식은 신성하게 현명하시다. 영원한 이에게는 악이 침투하지 못한다. 우주가 하느님으로부터 발생하였으므로, 그가 그것을 적절하게 다스리신다. 그는 창조의 원인이시며 따라서 모든 것이 그의 안에서 형성되었다.

“하느님은 필요할 때 모든 선한 사람들에게 확실한 피난처가 되시며; 불멸하시는 분은 모든 인류를 돌보신다. 하느님의 구원은 강하며, 그의 친절하심은 은총이 넘친다. 그는 사랑이 많으신 보호자이시며 축복이 넘치는 옹호자이시다. 주님께서 말하되: ‘나는 그들 자신의 혼속에 지혜의 등불로서 머무른다. 나는 빛나는 광채이며 선한 사람들의 선이다.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있다.’ 창조체들은 창조자의 현존을 피할 수가 없다. 주님은 모든 필사자의 눈이 끊임없이 깜빡거리는 것까지도 세시며; 우리는 이 신성한 존재를 우리와 분리할 수 없는 동행자로서 경배한다. 그는 모든 것에 세력을 미치시며 관대하시며 전재(全在)하시며 무한히 친절하시다. 주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피난처이시며, 최극의 통제자이시며, 그의 태고의 영이 필사자의 혼 안에 내주하고 있다. 선행과 악행에 대한 영원한 증인이 사람의 가슴속에 거한다. 경배할 만하고 신성한 생명을 주는 이를 깊이 명상 한다; 그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충분히 다스리게 하라. 이 비실제의 세계로부터 실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죽음에서 불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가슴으로 모든 미움을 일소하고, 영원자를 경배하자. 우리의 하느님은 기도의 주님이시며; 자기 자녀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신다. 모든 사람들의 의지를 변치 않으시는 분에게 복종시키게 하라. 기도의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 속에서 기뻐하자. 너희의 내밀한 친구에게 기도하고, 너희 혼의 지지자를 경배하라. 영원한 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오직 사랑으로 나를 경배하면, 나는 너희에게 나를 얻는 지혜를 주겠노라, 나를 경배함은 모든 창조체에게 공통된 덕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어두움을 밝히시는 분이시며 연약한 자의 힘이시다. 하느님은 우리의 강한 친구이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정복되지 않는 정복자의 이름을 칭송한다. 그가 사람의 신실하시고 영원한 조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경배한다. 하느님은 우리의 확실한 영도자이시고 실패를 모르는 안내자이시다. 그는 하늘과 땅의 위대한 부모이시며, 무한한 에너지와 무제한적인 지혜를 소유하셨다. 그의 광채는 장엄하며, 그의 아름다움은 신성하다. 그는 우주의 최극의 피난처이시며 영속하는 법의 변함없는 수호자이시다. 우리의 하느님은 생명의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안위자이시며;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핍박받는 자들의 조력자이시다.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며 인간 무리의 선한 목자이시다.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형제이시며 친구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느님을 우리의 내면적 존재 속에서 알기를
열망한다.

131:4.5 (1448.4) “우리는 우리 가슴의 열망으로써 신앙을 얻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우리 감각의 억제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으며,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극자 안에서 평화를
체험하였다. 신뢰로 가득한 이는, 그의 내면의 자아가
하느님에게로 향할 때 진정으로 경배한다. 우리의
하느님은 하늘을 외투로 삼으시고; 그는 또한 다른 여섯
개의 넓게 펼쳐진 우주들에 거한다. 그는 모든 것 위와 모든
것 속에서 최극이시다. 우리는 우리 동료들에 행한 모든
과오로 인해 주께 용서를 구한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릇됨으로부터 친구들을 용서할 것이다.
우리의 영은 모든 악을 싫어한다; 그러니, 오, 주님, 악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는, 위로자시며
보호자시며 구원자이신—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기도한다.

“우주를 유지하시는 분의 영이 단순한 창조체의 혼속으로 들어가신다. 그 사람은 유일한 하느님을 경배하는 현명한 사람이다. 완전을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최극 주님을 알아야 한다. 그는, 누가 최극자의 축복이 넘치는 안전함을 아는지를 개의치 않으시는데, 최극자는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섭리의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느님은 진리이다. 그리고 그의 창조체들이 자기를 납득하는 것—진리를 충분히 아는 것—이 하느님의 바램이시다. 진리는 영원하다; 우주를 지탱한다. 우리의 최극의 열망은 최극자와 연합하는 것이다. 위대한 통제자는 모든 것—모든 진화가 그로부터 나왔다—을 생겨나게 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의무는 다음과 같다: 아무도 자신에게 싫증나는 일을 다른 이에게 시키지 못하게 하라; 악을 품지 말고, 너희를 때리는 자를 때리지 말며, 자비로 분노를 정복하고, 은혜로 증오를 극복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해야 만하는 것은, 하느님이 친절한 친구이며 우리의 모든 세속적 잘못을 용서하시는 은혜로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땅은 우리의 어머니요, 우주는 우리가 태어난 곳이다. 하느님이 없이는 혼은 갇힌 자이다; 하느님을 아는 것이 혼을 해방한다. 하느님을 명상함으로써, 그와 연합함으로써, 악에 대한 모든 망상으로부터 해방됨이 오고, 모든 물질적 사슬에서 궁극적인 구원을 맞이한다. 사람이 공간을 한 조각 가죽처럼 둘둘 말아 버릴 때, 악이 종말을 맞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이 하느님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오, 하느님이시여, 우리를 삼중의 지옥의 파멸의 원인—욕욕, 분노, 탐욕—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오, 혼이여, 불멸함의 영 투쟁을 위하여 스스로 각오를 단단히 해라! 필사 생명의 끝이 왔을 때, 더욱 어울리고 아름다운 형태를 얻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움도, 슬픔도, 배고픔도, 목마름도, 죽음도 없는 그곳 최극자와 불멸자의 영역에서 깨어나기 위해 주저하지 말고 이 육신을 버려라. 하느님을 아는 것은 죽음의 끈을 잘라 버리는 것이다. 하느님을-아는 혼은, 우유의 위에서 크림이 떠오르듯, 우주에서 떠오른다. 우리는 자신의 창조체의 가슴 안에 언제나 자리하고 계시는 위대한 혼, 모든 일을-하시느 분, 하느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하느님이 인간의 가슴속 보좌에

앓아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불멸—될 운명이다. 악은 이 세상에 남아 있게 되지만, 미덕은 혼을 따라 하늘로 간다.

131:4.8 (1449.3) "'우주에는 진실도 없고 어떤 통치자도 없으며; 우리의 탐욕을 위하여 고안되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자는 오직 사악한 자일뿐이다. 그러한 혼은 그들의 지성이 편협 됨으로 인하여 미혹되는 것이다. 그들은 탐욕을 즐기는데 자신을 던지고 자신의 혼에서의 덕목의 즐거움과 정의의 기쁨을 빼앗는다. 죄에서 구원받는 체험보다 더 큰 체험이 있을 수 있는가? 최극자를 만난 사람은 불멸한다. 육신으로서의 사람의 친구들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으며; 사람이 파라다이스의 화창하고 빛나는 들판을 향해 여행할 때, 그의 선행만이 그 사람 곁을 따라간다."

제 5 장. 조로아스터교

131:5.1 (1449.4) 조로아스터는 그 자신이 초기 멜기세덱 선교사들의 후손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가졌었으며, 유일한 하느님에 대한 그들의 교리는 그가 페르시아에 세운 종교의 중심 교훈이 되었다. 유대교를 제외하고,

당시에 조로아스터교보다 이들 살렘의 가르침들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종교는 없었다. 이 종교의 문헌들에서 가니드는 다음과 같은 문구들을 발췌하였다:

131:5.2 (1450.1) “모든 것이 한 분 하느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그분께—전지하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우신—속해 있다. 우리의 이 하느님은 모든 광채의 근원이다. 그는 창조자이시며, 모든 선한 목적의 하느님이시며, 우주의 공의를 수호하시는 분이시다. 현명한 일생을 사는 길은 진리의 영과의 일치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사악한 자의 악행과 의로운 자의 선행을 둘 모두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하느님은 번쩍이는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한다. 그의 손끝이 닿는 곳에는 치유함이 있다. 주님은 만능이신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느님은 그의 은혜로운 손길을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둘 모두에게 펼친다. 하느님은 세상을 세우셨고 선과 악에 대한 보응을 정하셨다. 전지한 하느님은, 순수하게 생각하고 의롭게 행동하는 경건한 혼에게 불멸을 약속하고 계시다. 너희가 최극으로 열망하는 대로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다.

우주에서 하느님을 알아보는 자에게 있어서 태양의 빛은 지혜와 같은 것이다.

131:5.3 (1449.6) “지혜로우신 이의 기쁨을 추구함으로써 하느님을 칭송하라. 그가 종교를 통해 계시한 길을 걸음으로써 빛의 하느님을 경배하라. 빛들의 주님이신, 최극자 하느님은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물과 식물과 동물과 땅과 하늘들을 만드신 이를 경배한다. 우리의 하느님은 가장 은혜로우신 주님이시다.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관대한 불멸의 존재, 영원한 빛을 자질로서 부여받은 이를 경배한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가장 멀리 계시며, 동시에 가장 가까우신 분으로서 우리의 혼 안에 거한다. 우리의 하느님은 신성하고 가장 거룩한 파라다이스의 영이시지만, 모든 창조체의 가장 친근한 것보다 사람에게 더욱 친근한 분이시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시며, 모든 일들 중에서 그분 자신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가장 칭송 받을 만한 분이시며 의로운 친구이다; 우리의 지혜이시고 생명이시며 혼과 육체의 활력이 되는 분이시다. 지혜로우신 창조자는 우리의 선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실 것이며, 그럼으로써 신성하게 완벽한 모든 것의 실현을 달성 한다.

131:5.4 (1449.7) “주님, 한편으로는 내세의 영의 일생을 준비하면서, 육체에서의 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나이다. 우리에게 좋은 길들을 가르쳐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가겠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연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우리는 정의로움과 함께 연합하는 길로 인도하는 종교가 올바른 것임을 알고 있나이다. 하느님은 우리 지혜의 본성이시며 최상의 생각이며 정의로운 행동이십니다. 하느님이시여, 당신 안에서 신성한 영과 불멸성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소서!

131:5.5 (1449.8) “지혜자의 이 종교는 모든 악한 생각과 죄 많은 행위로부터 믿는 자를 깨끗케 한다. 만일 내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죄를 범한 것이 있었다면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앞에 회개하면서 허리를 굽힐 것이며, 자비를 바라면서 탄원하고 용서를 바라면서 기도한다. 내가 고백할 때에, 다시는 악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면, 그 죄가 내 혼에서 물러갈 것임을 나는 안다. 그 용서가 죄의 결박을 풀어줄 것임을 나는 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벌을 받아들일 것이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혼들에게 구원의 힘을 행사하소서. 우리는 완전을 달성하기를 원하기에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6 장. 수두안교 (자이나교)

131:6.1 (1450.5) 인도에서 유일한 하느님 사상—멜기세덱 가르침의 생존—을 보존해 온 신자들 중에서 세 번째 그룹이 그 당시에는 수두안 교도들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후에 이 신자들은 자이나교의 추종자들로써 알려졌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131:6.2 (1450.6) “하늘의 주는 최극이시다. 죄를 범하는 자는 높이 올라가지 못할 것이지만, 정의의 길들을 걷는 자는 하늘에서 처소를 찾을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이후의 일생을 확신한다. 사람의 혼은 가장 높은 하늘에까지 올라갈 수도 있으며, 거기에서 진정한 영적 본성을 발전시키고 완전성을 달성할 것이다. 하늘의

재산은 사람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며 최종적이고 참된 행복으로 인도한다; 정의로운 자는 이미 죄와 그것에 연관된 모든 불행의 종말을 체험한 것이다. 자아는 사람의 이겨내기 어려운 적이며, 자아는 사람의 네 가지 가장 큰 열정으로 현시된다; 그것은 곧 분노, 자부심, 거짓, 탐욕이다. 사람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사람이 용서를 구하려고 하느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사람이 그런 해방을 대담하게 즐길 때, 그는 그것으로서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사람은 자신이 대우받고 싶은 것처럼 그의 연관-동료 창조체들을 대우하며 일생의 여정을 여행해야 한다.”

제 7 장. 신교

131:7.1 (1451.1) 극동지방 종교의 그 사본들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된 것은 그 당시 최근의 일이었다. 그것은 가니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세계 종교였다. 다음의 요약에서 나타나는 바대로 이 신앙 역시 초기 멜기세덱 가르침의 자취를 간직하고 있다:

131:7.2 (1451.2)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는 나의 신성한 힘을 받은 자들이다; 모든 사람이 나의 자비로운

보살핌을 누리고 있다. 나는 온 땅위에 의인들이 늘어나는 것에서 큰 기쁨을 갖는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덕목 양쪽 모두에서 하늘의 영주는 자신을 드러내고 또 의로운 자기 본성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전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알지 못했기에, 나는 세상에 태어나 눈에 보이는 실존이 됨으로써 나 자신을 현시하였으며, 사람이 나의 이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굴욕마저 참았다.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든 자이다; 해와 달과 모든 별이 내 뜻에 복종한다. 나는 땅과 사해(四海)에 있는 모든 창조체의 통치자이다. 비록 내가 위대하고 최극이지만, 나는 여전히 불쌍한 사람의 기도를 중히 여긴다. 만약 어떤 창조체든지 나를 경배한다면, 나는 그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그의 가슴속에 있는 소망을 들어줄 것이다.

131:7.3 (1451.3) "'사람이 번민에 짓눌릴 때마다 그는 자기 가슴에 있는 혼의 인도로부터 한 걸음씩 멀어진다.' 자부심은 하느님을 방해한다. 만약 너희가 하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너의 자부심을 버려라; 조금이라도 자부심을 갖게 되면 구원의 빛이 차단되며, 거대한 구름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과 같다. 만약 너희가 내면에서 떳떳하지 못하면 외부적인 것을 위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만약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는다면, 그것은 너희가 거짓과 위선을 벗어나 깨끗한 가슴으로 진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혼으로 내 앞에 왔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가 불멸을 얻고자 한다면, 세상을 버리고 나에게로 오라.”

제 8 장. 도교

131:8.1 (1451.4) 멜기세덱의 메신저들은 중국까지 깊이 들어갔고, 유일한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은 중국에 있는 몇몇 종교들의 초기 가르침의 일부가 되었다; 유일신을 가르치는 진리 대부분을 포함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전해져 온 것이 바로 도교였고, 가니드는 그 창시자의 가르침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수집하였다:

131:8.2 (1451.5) “최극자는 얼마나 순수하고 고요하며, 얼마나 힘세고 강하며, 또한 얼마나 깊고 헤아릴 수 없는지! 하늘에 계신 이 하느님은 만물의 영예로운 조상이시다. 만약 네가 영원자를 안다면, 너희는 깨우친 것이고 현명한 것이다. 만약 네가 영원자를 모른다면, 그때는 무지가 스스로 악을 현시하며 그렇게 하여 죄에 대한 열망이 일어난다. 이 놀라운 존재는 하늘들과 땅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였다. 그는 진실로 영적이며; 아무 도움도 받지

않으시며 변치 않으신다. 그는 참으로 세상의 어머니이시며, 모든 창조체는 그의 주위에서 움직인다. 이 위대한 이는 자신을 사람에게 나누어주시며,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탁월하게 만드시고 영존 하게 한다. 사람이 비록 지식을 조금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 하여도, 그는 여전히 최고자의 길 안으로 걸어갈 수 있다; 하늘의 뜻을 따를 수 있다.

131:8.3 (1452.1) “참된 봉사에서의 모든 선한 일들은 최극자로부터 나온다. 만물은 생명에 대하여 위대한 근원에게 의지한다. 위대한 최극자는 자기가 증여한 것들에 대해 조금도 공로를 찾지 않는다. 그는 힘에서 최극이지만, 우리의 눈에서 띄이지 않도록 언제까지나 감추어진 채 머물고 있다. 그는 자신의 창조체들을 완전하게 하면서, 자신의 속성들을 끊임없이 변질시킨다. 하늘의 이치는 느리고 그의 계획을 세우는데 참음이 있지만, 그의 성취는 확실하시다. 최극자는 우주를 온통 뒤덮으시고 그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다. 그의 넘치는 영향력과 이끄시는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지! 참된 선(善)은 물과 같으니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을 축복하고 그 어떤 것도 해치지 않는다. 그렇게 물처럼, 참된 선은 가장

낮은 곳, 아니 남들이 피하는 바닥까지도 찾아가니, 그것은
최극자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최극자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본성 안에서 그들을 키우시며, 영 안에서
그들을 완전하게 한다. 최극자가 창조체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그를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것은,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모른다. 그는 자아-주장 없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지배하지 않고 진보를 돌보시고
있다.

131:8.4 (1452.2)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가슴을 보편화한다.
어설피게 아는 지식은 위험한 것이다. 위대함을 열망하는
자들은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창조에서,
최극자는 세상의 어머니가 되셨다. 자기 어머니를 아는
것은 자기가 아들신분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전체의
관점에서 모든 부분을 보는 그러한 자는 현명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에게 대할 때, 네 자신이 마치 그의 처지에 있는
것처럼 대하라. 친절함으로 모욕을 갚으라. 만약 네가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들이 너에게 가까이
끌려오니—저희를 설득하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없다.

131:8.5 (1452.3)

“위대한 최극자는 모든 곳에 퍼져계신다; 왼편에도 계시고 오른편에도 계신다; 모든 창조를 도우시고 모든 참된 존재들 속에 거한다. 너희는 최극자를 찾을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그가 계시지 않는 곳에 갈 수도 없다. 만약 사람이 자신의 길이 악함을 깨닫고 가슴으로부터 죄를 뉘우친다면, 그는 용서를 구할 수도 있다; 벌을 피할 수 있다; 화를 복으로 바꾸게 할 수도 있다. 최극자는 모든 창조체의 안전한 피난처이시다; 인류의 수호자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만약 너희가 날마다 그를 구하면, 너희는 그를 틀림없이 찾을 것이다. 그는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만민에게 참으로 가장 귀한 분이시다. 하느님은 사람의 행함에 대해서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상을 바라지 말고 이웃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 자신에게 돌아올 혜택을 생각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131:8.6 (1452.4)

“영원자의 법을 아는 자들은 현명하다. 신성한 법에 무지한 자는 불행하며 재난이 뒤따른다. 하느님의 법도를 아는 자는 그 마음이 자유롭다. 만약 너희가 영원자를 안다면, 너희의 육체는 멀하지만 너희 혼은 영의

봉사 안에서 생존될 것이라. 너희가 자신의 무의미함을 인식할 때 너희는 진정으로 현명해진다. 너희가 영원한 이의 빛 속에 거한다면, 너희는 최극자에 대한 깨우침을 누릴 것이다. 최극자의 봉사에 자신들의 개인을 봉헌한 사람들은, 영원한 이를 추구함 속에서 즐거워한다. 사람이 죽을 때, 영은 위대한 고향으로 귀환하는 긴 여행을 날아가기 시작한다.”

제 9 장. 유교

131:9.1 (1452.5) 세상의 위대한 종교들 중에서 가장 적게 하느님을-인정하는 종교조차도, 멜기세덱 선교사들과 변치 않는 그 계승자들의 유일신 사상을 인정하고 있었다. 유교에 대한 가니드의 요약은 다음과 같았다:

131:9.2 (1452.6) “하늘의 약속에는 실수가 없다. 진리는 실제이며 신성하다. 만물은 하늘에서 나왔고, 위대한 하늘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하늘은 많은 종속들을 임명하셔서 열등한 창조체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그들의 향상을 도와주도록 하였다. 위대한, 아주 위대한 이는 높은 곳에서 사람을 다스리시는 한 분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은 힘에 있어서 장엄하시며 그 판단하심에 있어서 엄격한 분이시다.

그러나 이 위대한 하느님은 많은 열등한 민족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도덕적 감각을 주신다. 하늘의 은총은 끊임이 없다. 은총은 하늘이 사람에게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다. 하늘은 사람의 혼에게 그 고상함을 베푸시며; 사람의 덕은 하늘의 고상함 자질이 주는 열매이다. 위대한 하늘은 모든 것을 식별하시고 만사에 사람과 함께 한다. 그리고 위대한 하늘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를 때, 우리는 만족스럽게 행하는 것이다. 만약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성한 선조들의 하인이 된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늘에게 기도할 수도 있다. 항상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늘의 장엄을 경외하자. 오, 하느님이시여, 지고자시여, 다스리시는 군주시여, 우리는 심판이 당신에게 달려있음과 모든 자비가 신성한 가슴으로부터 진행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131:9.3 (1453.1)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우리는 가슴에 두려움이 없다. 모든 선행이 그 보상을 받는다면, 그것은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늘의 현시활동이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하늘은 종종 내 신앙에 어려운 요구를 한다. 만약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가슴속에 어떤 의심도

하지 않을 것이다. 신앙은 틀림없이 사물들에 대한 진리에 아주 가까이 있고, 나는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선한 신앙 없이 살 수 있는 지 알 수 없다. 선과 악은 원인이 없이 사람들에게 발생되지 않는다. 하늘은 그 목적에 따라 사람의 혼과 관계를 이룬다. 너희가 너희 자신의 그릇됨을 발견하면, 지체하지 말고 너희 잘못을 고백하고 재빨리 보상하라.

131:9.4 (1453.2)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에 몰두되며, 단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에 몰두되지는 않는다. 하늘의 완전함을 달성하는 것이 사람의 목표이다. 우월한 사람은 자아-조절에 열중하기 좋아하며,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롭다. 하느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의 가슴속에 그 어떤 의심도 하지 말라. 모든 선한 행실은 그 보상을 받는다. 우월한 사람은 하늘을 상대하여 투덜대지 않고 사람들을 상대하여 앙심을 품지 않는다. 너희 자신에게 행하였을 때 너희가 좋아하지 않을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모든 징벌에서 연민이 한 부분이 되도록 하라; 그 어떤 길에서도 징벌이 축복이 되도록 참아내라. 그것이 위대한 하늘의 길이다. 모든 창조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지만, 그러나 고귀한 사람의

영은 높은 곳에 전시되며 최종적 밝음을 비취는 영광스러운 빛에 이르기까지 상승한다.”

제 10 장. “우리의 종교”

131:10.1 (1453.3) 파라다이스 아버지께 관한 세계 종교의 가르침들을 모은 이 자료집을 완성하는 어려운 작업을 마치고 나서, 가니드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결과로, 자신이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던 그 믿음을 요약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을 구성하는 임무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이 젊은이는 그러한 믿음을 습관적으로 “우리의 종교”라고 부르곤 하였는데, 그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131:10.2 (1453.4) “주님 우리의 하느님은 유일한 주님이시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진정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하며, 동시에 너희가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한 분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며, 만물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고, 진지한 인간의 모든 혼속에 영으로 거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실한 창조자이신 그분에게 우리의 혼을 어떻게 의탁해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는 만물과 모든 존재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기에, 거기에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다. 비록 우리가 하느님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매일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그를 우리 동료들에게 나타낼 수 있다.

131:10.3 (1453.5) “하느님의 성격 속에 있는 신성한 풍성함은 무한히 깊고 영원히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식으로 하느님을 찾을 수 없지만, 개인적 체험을 통해 우리의 가슴 안에 그를 알 수 있다. 그의 공의는 지나간 후에야 발견될 수 있는 반면에, 그분의 자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우주를 가득 채우시는 동안에, 그분은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거한다. 사람의 마음은 인간적이고 필사이지만, 사람의 영은 신성하며 불멸한다. 하느님은 만능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지혜를 갖추고 계시다. 만약 우리의 육신적인 부모들이, 악한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자녀들만큼은 어떻게 사랑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좋은 선물을 주어야 하는지 안다면, 하늘에 계신 선한 아버지께서 훨씬 더 지혜롭게 이 땅에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축복을 내리시는 방법을 얼마나 당연히 더 잘 아실까.

131:10.4 (1454.1)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 자녀가 아버지를 찾기 바라고 진실로 그와 같이 되려고 원하는 한, 이 세상에서 한 자녀도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의 아버지는 악인조차 사랑하시며,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도 언제나 친절하시다. 만약 더 많은 인간 존재들이 하느님의 선함을 알 수만 있다면, 그들은 확실히 자신의 악한 기질을 후회하고 모든 알려진 죄를 떠날 것이다. 모든 선한 것들은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며, 그의 속에는 변함이 없으시고 변화의 그림자도 없으시다. 참 하느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되기를 원한다. 사람이 하느님을 찾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이미 하느님이 그들을 찾았다는 증거이며, 그들은 그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살고 하느님은 우리 안에 거한다.

131:10.5 (1454.2) “나는 더 이상 하느님이 우리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인 것을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그가 또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을 것이다. 나는 내가 실제로

하느님을-알게 되었을 때 나의 조력자가 되시는 진리의 영의 도우심으로 그를 경배하려고 항상 힘 쓸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이 어떠하심을 알아서, 하느님을 경배하는 행동을 실천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필사자인 내 이웃 각자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대로, 나는 내 곁에 있는 그들을 최선을 다해 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 속에서 이러한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하느님의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들을 돕기 위해 더 잘 준비되고 싶다는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들의 사랑 넘치는 이 모든 봉사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에서의 사명활동의 높은 즐거움을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우리의 수용능력을 확대한다.

131:10.6 (1454.3) "나는 그의 말할 수 없는 선물들로 인하여 하느님께 매일 감사할 것이다; 사람의 자녀들에게 행한 그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할 것이다. 내게 있어서 그분은 전능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권능이시며 자비이시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내 영의 아버지시며, 이 세상에 있는 그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언젠가 그를 만나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의 선생님은 내가 그분을 갈구함으로써 그를 닮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느님 안에서의 신앙으로, 나는 그분과 평화롭게 지낸다. 우리의 이 새로운 종교는 기쁨으로 충만하며, 그것은 영구적인 행복을 준다. 나는 죽을 때까지 신실할 것임을 확신하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분명히 받아들일 것을 확신한다.

131:10.7 (1454.4) "나는 모든 것을 증거 하는 것과 선한 것에 집착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모든 일들을, 나는 내 이웃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새로운 이 신앙으로 인하여, 나는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음을 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의 형제라는 생각을 멈추어 생각해 보면 때때로 두려운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그 생각은 진실임에 틀림없다. 모든 사람이 내 형제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을 기쁨으로 향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나는 알 수 없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만일 그것이 진실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나의 형제들임에 틀림없다.

131:10.8 (1454.5) “그러므로 나는 은밀하게 선을 행할 것이다; 또한 나는 홀로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할 것이다. 나는 내 이웃들을 부당할지 모를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나는 하느님과-같음이 되는 이 실천을 아직 참되게 숙달하지 않았다. 비록 내가 다른 종교들 속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나는 ‘우리의 종교’ 속에서, 더욱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며 자비롭고 인간적이며 적극적인 존재로서 그를 발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나의 영적 아버지이신 것과; 나는 그의 자녀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모든 다른 방법을 제외한, 단지 그와 같아지려는 거짓 없는 원함을 통하여, 나는 결국에는 그를 발견할 것이며, 그리하여 영원히 그를 섬길 것이다. 드디어 나는 한 하느님, 장엄한 하느님의 종교를 갖게 되었고, 그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하느님이시다..

제 132 편 로마 체류 기간

132:0.1 (1455.1) 고노드는 인도의 영주(領主)들로부터 로마인 통치자인 티베리우스에게 보내는 서신을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로마에 도착한지 3일 후에 이 두 사람의

인도인들과 예수는 티베리우스를 만나러 갔다. 성미가
괴팍한 황제는 그날따라 평소와는 달리 매우 기분이
좋았고 이 세 사람들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이
자기 앞에서 물러가자, 황제는 예수를 언급하면서, 오른
쪽에 서 있던 측근에게 “만약 내가 저 사람의 왕다운
자태와 우아한 태도를 가졌다면, 내가 실제 황제가 될
터인데. 그렇지 않느냐?”라고 한마디 하였다.

132:0.2 (1455.2) 로마에 있는 동안, 가니드는 공부와 도시 근처의
흥미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데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의 아버지는 처리할 사업상 거래가 많았고, 자기
아들이 자라서 자신의 거대한 상업적 이권의 관리에
있어서 값진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이
소년을 사업세계에 입문시킬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였다.
로마에는 많은 인도인들이 있었으며, 고노드가 직접
채용한 사람들 중의 하나가 그를 위해 통역을 자주 맡아
주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예수는 하루 종일 혼자서
보내곤 하였다; 이것이 200만 명의 주민을 가진 이 도시를
살살이 눈에 익힐 시간을 그에게 주었다. 그는 정치, 사법,
그리고 상업 활동의 중심지가 되는 토론광장에서 자주
눈에 띄었다. 그는 카피톨리움에 종종 올라갔고 거기서

쥬피터와 쥬노와 미네르바에게 바쳐진 웅장한 신전을 보면서, 이들 로마인이 붙들려 있는 무지의 사슬에 대해 깊이 묵상하였다. 그는 또한 팔라틴 언덕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곳에는 황제의 저택과 아폴로 신전 그리고 그리스와 라틴 도서관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132:0.3 (1455.3) 이때의 로마제국은 남부 유럽 전체,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북서 아프리카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 중에는 동반구(東半球)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시민들도 포용되어 있었다. 이러한 유란시아 필사자들의 세계적인 집합체를 공부하고 또 그들과 함께 어울리려는 욕망이, 예수가 이 여행에 동참하기로 승낙한 주된 이유였다.

132:0.4 (1455.4) 예수는 로마에 머무는 동안 사람들에게 대해서 많이 배웠지만, 그가 이 도시에서 6개월 체류기간동안 가졌던 다양한 모든 체험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제국의 수도에 있는 종교 영도자들을 접촉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었다. 로마에서의 첫 주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예수는 건유학파, 스토아학파, 신비종파, 그리고 특히 미트라를 숭배하는 집단의 쓸 만한 영도자들을

찾아내었고, 그들과 친숙해졌다. 예수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 유대인들이 명백하게 배척할 것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그의 메신저들이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기 위하여 얼마 안 있어서 로마로 올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예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복음이 좀 더 수월하고도 확실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미리 길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스토아학파 중에서 뛰어난 5명, 견유학파에서 11명, 그리고 신비-예배종파의 영도자 중에서 16명을 선택하였고, 거의 6개월 동안의 남는 시간 대부분을 이들 종교 선생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보냈다. 그가 가르친 방법은 다음과 같았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내포하는 실수들이나 결점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았다. 각각의 경우마다 그들의 가르침 속에 있는 진리를 분리해 낸 후에 이 진리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갇추어지고 밝게 빛나도록 유도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진리가 강화되어, 연관되어 있던 실수를 효과적으로 밀어내게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가 가르쳤던 이 남녀들은, 나중에 초기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의 가르침들 속에서 좀 더 첨부되고 비슷한 진리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복음 설교자들의 가르침이 이런 식으로 일찍부터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리스도교가 급속도로 퍼지고 그곳으로부터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강력한 촉진제가 제공되었다.

132:0.5 (1456.1) 주목할 만한 이 행동의 의의는 우리가 기록하려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부터 더 잘 납득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가 로마에서 가르쳤던 32명의 종교 영도자들 중에서 단지 2명만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사실과; 나머지 30명이 로마에서 그리스도교가 설립되는 데 있어서 중심인물들이 되었고, 또한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최고의 미트라교 신전이 그 도시의 첫 번째 그리스도교 교회로 바뀌는데 있어서 공헌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이다. 뒤에서 인간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로서는, 그리고 19세기 시대의 관점에서 고려해 볼 때, 유럽 전역에 그리스도교가 빨리 퍼지도록 하는 무대를 일찍부터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지상의 가치를 갖는 정확하게 세 가지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32:0.6 (1456.2) 1. 시몬 베드로를 사도(使徒)로 선택하고 유지한 점.

132:0.7 (1456.3)

2. 스테반과의 예루살렘에서의 대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타르수스의 사울을 얻게 되었던 점.

132:0.8 (1456.4)

3. 로마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 제국 전역에서 새로운 종교의 영도자관계가 되도록 30명의 이 로마인들을 미리 준비시킨 점.

132:0.9 (1456.5)

스테반이나, 혹은 선택된 30명의 로마인도, 자신들의 모든 체험을 이루는 동안, 자기들이 한 때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의 이름이 자신들의 종교적 가르침의 주제가 되었다는 것을 언제까지나 깨닫지 못하였다. 기원적인 32명을 위하여 행한 예수의 활동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이었다. 이들 개별존재들에 대한 그의 노력에서, 다마스쿠스의 서기관은 결코 그들 중 세 사람 이상을 한 번에 만나지 않았으며, 두 사람 이상을 만나는 경우도 드물었고, 대부분의 경우에 혼자서 그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가 종교적으로 훈련시키는 이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남자들과 여자들이 전통에 속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미래의 모든 종교적 발달 과정과는 달리, 고정된 선입견의 희생자들이 아니었다.

132:0.10 (1456.6) 몇 년 후에 많은 사람들이 매우 신속하게 뒤따랐기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로마에 온 다른 그리스도교 선생들은 자기들보다 먼저 앞장섰던, 그리고 자기들이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매우 분명하게(그리고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상상하였던 대로) 그 길을 준비해 놓았던 이 다마스커스의 서기관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바울은 비록 이 다마스커스의 서기관의 정체성을 한 번도 실제로 추측하지는 못하였지만,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그에 대한 개인적 설명들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안디옥의 천막-만드는 자"가 바로 "다마스커스의 서기관"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한 번은, 시몬 베드로가, 로마에서 설교하는 동안, 다마스커스의 서기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어쩌면 이 사람이 예수였었는지도 모른다고 추측하였지만, 그는 자기 스승이 로마에 온 적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곧 그 관념을 지워버렸다.

제 1 장. 참된 가치

132:1.1 (1456.7) 로마 체류기간의 초기에 예수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스토아학파의 영도자인

앙가몬이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바울의 훌륭한 친구가 되었고, 로마에서 그리스도교 교회를 강력하게 지지한 사람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예수가 앙가몬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현대 언어로 다시 요약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32:1.2 (1457.1) 참된 가치관의 기준은 영적 세계에서와 영원한 실체의 신성한 차원들에서 찾아져야만 한다. 상승하는 필사자에게는, 저급하고 물질적인 모든 기준들은 과도기적이고, 부분적이며 열등한 것으로 인지되어야만 한다. 과학자들은 물질적 사실들의 관계성을 발견하는 데에, 그렇게 나름대로 국한된다. 기술적으로 볼 때, 그는 자신이 물질주의자나 혹은 이상주의자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는데, 이는 그렇게 주장하는 태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바로 철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가 진정한 과학자의 태도를 저버리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132:1.3 (1457.2) 만일 인류의 도덕적 통찰력과 영적 달성이 균형 잡힌 비례로 증강되지 않는다면, 순전히 물질적인 문화의 무제한적인 발전은 결국에는 문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순전히 물질적인 과학은 모든 과학적 투쟁성과를

파괴하는 잠재적 씨앗을 그 자체 내에 간직하고 있는데, 이로서 바로 이러한 속성은, 한 문명이 스스로 도덕적 가치감각을 포기해 가고 그리고 영적 달성목표를 배척해 가는 그러한 문명의 궁극적 붕괴를 가져오는 전조가 된다.

132:1.4 (1457.3) 물질적인 과학자와 극단적인 이상주의자는 항상 치고받으며 다투게 되어 있다. 이것은 높은 도덕적 가치와 영적 시험 차원의 상식적 기준을 소유한 저들 과학자와 이상주의자에게는 참말이 아니다. 모든 시대에서, 과학자들과 종교가들은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만 한다. 그들은 인간의 진보를 이루는 봉사에 더욱 더 헌신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속적인 생존을 정당화하려고 용감하게 분투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 서로간의 모든 전쟁을 피해가야만 한다. 만약에 어떤 시대의 이른바 과학이나 종교가 거짓되다면,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가치 있는 질서의 물질적 과학 또는 영적 종교가 창발하기 전에 그것들의 활동들이 정화되거나 아니면 사라져야만 한다.

제 2 장. 선과 악

132:2.1 (1457.4)

마르두스는 로마에서 유명한 견유학과 영도자였으며, 다마스커스의 서기관에게 훌륭한 친구가 되었다. 그는 매일같이 예수와 이야기를 나눴고, 밤마다 그의 숭고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많은 중요한 토론들 중에는, 선과 악에 대한 이 진지한 견유학자의 질문에 답변하려는 의도로 마련된 것이 있었다. 예수가 말한 내용을 20세기 언어로 요약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32:2.2 (1457.5)

나의 형제여, 선(善)과 악(惡)이란 말은, 관찰 가능한 우주에 대하여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상대적 차원을 상징하는 단어에 불과하다. 만일 네가 윤리적으로 게으르고 사회적으로 무관심하면, 현재의 사회적 풍습들을 선에 대한 너의 기준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만약 네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도덕적으로 진보적이지 못하다면, 너는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종교적 실천 관행과 전통을 너의 선의 기준으로 삼아도 된다. 그러나 시간에서 생존하여 영원 안에서 창발 하는 혼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사람의 가슴 안에 거하도록 보내준 신성한 영에 의해 세운 영적 기준들에 대한 진정한 가치에 따라 그들이 결정 되는대로 그에 따라, 선과 악 사이에서

활력을 주는 그리고 개인적 선택을 내려야만 한다. 이러한 내주(內住)하는 영이 바로 개인성 생존의 기준인 것이다.

132:2.3 (1457.6) 진리와 마찬가지로, 선이란 항상 상대적이며, 반드시 악과 대조된다. 이들 선과 진리의 본질특성에 대한 인식이 바로, 사람의 진화하는 혼이 영원한 생존에 필수 요소인 선택을 그러한 개인적 결정으로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132:2.4 (1458.1) 과학적 명령과 사회적 관례 그리고 종교적 독단론을 논리적으로 따르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개별존재는, 자신의 도덕적 자유를 희생하고 영적 해방을 잃는 심각한 위험 속에 처해 있다. 그러한 혼은 지적 앵무새나 사회적 자동장치 또는 종교적 권한의 노예가 될 운명에 처해 있다.

132:2.5 (1458.2) 선(善)은 도덕적인 자아-실현과 영적 개인성의 달성—내주하는 조절자의 발견, 그리고 조절자와의 정체화구현—이라는 증가하는 해방의 새로운 차원들을 향하여 항상 성장한다. 체험이란, 그것이 아름다움(美)에 대한 깊은 이해를 높이고, 도덕적 의지를 강화시키고, 진리에 대한 식별력을 증강시키고, 자기 동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힘을 확대하고, 영적 이상을
고양(高揚)시키고, 시간에서의 최극의 인간 동기를
내주하는 조절자의 영원한 계획과 통합할 때. 선(善)하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소망이
커지도록 직접적으로 인도하고, 그로써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를 더욱 닮아가려는 신성한 열정을
육성시킨다.

132:2.6 (1458.3) 네가 창조체 발전의 우주 눈금을 상승해감에
따라서, 선을-체험하는 그리고 진리를-식별하는 너의
수용능력에 따라서, 완전 안에서 증가되는 선과 감소하고
있는 악을 너는 발견할 것이다. 상승하는 인간의 혼이 최종
영적 차원을 성취할 때까지는, 실수를 품거나 악을
체험하는 능력을 전적으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132:2.7 (1458.4) 선(善)은 살아있고, 상대적이며, 항상 진보하고,
변함없는 하나의 개인적 체험이며, 진리(眞)와
아름다움(美)을 식별하는 것과 영구적으로 상관관계되어
있다. 선은 영적 차원의 긍정적 진리-가치를 인지하면서 그
안에서 발견되며, 긍정적 진리의 가치는 반드시, 인간의

체험 안에서, 부정적 복사본—잠재적 악의 그림자—과 대조되어야만 한다.

132:2.8 (1458.5) 네가 파라다이스의 차원들을 달성할 때까지, 선은 항상 달성한 체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목적이 될 것이며, 소유라기보다는 계속적인 추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정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며 나아갈 지라도, 부분적인 선의 달성 안에서 증가되어 가는 만족을 체험하게 된다. 이 세상에 선과 악이 현존한다는 사실은, 사람의 도덕적 의지의 실존과 실체, 이들 가치들을 그래서 정체화하고 또한 그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개인성의 실존과 실체를, 그 자체로서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이다.

132:2.9 (1458.6) 파라다이스의 달성 시기가 이르게 되면, 자아를 진정한 영적 가치들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승하는 필사자의 수용능력은 생명의 빛을 소유하는 완전성의 달성으로 결과를 낳기까지 그렇게 확대된다. 그렇게 완전해진 영 개인성은, 너무나도 전적으로, 신성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선함(善), 아름다움(美), 그리고 진리(眞)의 적극적이고도 최극의 본질특성과 통합되어지기 때문에 무한한 파라다이스 통치자의 신성한

빛의 날카로운 밝히 드러내는 광채에 쏘여질 때, 그러한 정의로운 영은 그 어떠한 잠재 악의 부정적인 그림자를 만들게 되는 아무런 가능성도 전혀 남아 있지 않다. 그러한 모든 영적 개인성에서, 선(善)은 더 이상 부분적이거나, 대조적이거나,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성하게 완성되었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것은 최극자의 순수함과 완전성에 가까워진다.

132:2.10 (1458.7) 악의 가능성은 도덕적 선택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재성은 아니다. 그림자는 단지 상대적으로 실재이다. 실재적인 악은 하나의 개인적 체험으로서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잠재적인 악은, 영적 발전의 낮은 차원들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 진보의 영역 안에서 결단을 이루는 하나의 자극제로 똑같이 잘 작용한다. 악은 오직 도덕적 마음이 악을 선택했을 때에만, 하나의 개인적 체험의 실체가 된다.

제 3 장. 진리와 신앙

132:3.1 (1459.1) 나본은 그리스 유대인이었고, 로마에서 으뜸 신비 예배종파인 미트라교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영도자였다. 미트라교의 이 고위 사제는, 다마스쿠스의 서기관과 가진

여러 번의 만남 중에서, 어느 날 저녁 나누었던 진리와 신앙에 관한 토론으로 가장 변함없는 영향을 받았다. 나본은 예수를 개종시키려고 생각하였었고 미트라교의 선생이 되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라고 그에게 제의하기까지 하였다. 그는 예수가 왕국 복음에 대한 초기 개종자들 중의 하나로 자신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가 가르친 요지를 현대 용어로 다시 서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32:3.2 (1459.2) 진리는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삶에 의해서만 정의(定意)되어질 수 있다. 진리는 항상 지식 이상의 것이다. 지식은 관찰할 수 있는 사물들과 관계되지만, 진리는 그러한 순전히 물질적인 차원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지혜와 조화롭게 어울리고 그리고 인간 체험처럼 그렇게 가치를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영적인 그리고 삶 실체들까지 포용한다. 지식은 과학에 근원을 두고 있다; 지혜는 진정한 철학에 근원을 두고 있다; 진리는 영적 삶의 종교적 체험에 근원을 두고 있다. 지식은 사실들을 다룬다; 지혜는 관계들을 다룬다; 진리는 실체 가치들을 다룬다.

132:3.3 (1459.3) 사람은 과학을 결정화하고, 철학을 정형화하며, 진리를 독단화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삶에 있어서의 발전적인 투쟁에 적응시키는 일에 정신적으로 나태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지의 것에 대해 끔찍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자연적인 사람은 자신의 사고의 습관이나 자신의 삶의 기법들에 변화를 시도하는데 있어서 둔하다.

132:3.4 (1459.4) 계시된 진리, 개인적으로 발견된 진리는, 인간 혼의 최극의 기쁨이다; 그것은 물질적인 마음과 내재하는 영이 공동으로 창조한 것이다. 진리(眞)를 식별하고 아름다움(美)을 사랑하는 이 혼의 영원한 구원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하느님을 찾으며 그를 닮아가려는 단 한 가지의 목적만을 개발하도록 이 필사자를 인도하는 선(善)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에 의하여 확인된다. 진정한 지식과 진리 사이에는 아무 충돌이 없다. 지식과 인간 신념들, 편견으로 채색되고, 두려움에 의해 변형되고, 물질적 발견이나 영적 진보의 새로운 사실들에 대처하는 것을 두려워함으로써 지배를 당하는 신념들 사이에서는 아마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132:3.5 (1459.5) 그러나 진리는 신앙의 실천 없이는 절대로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조금도 틀리지 않는 것은, 사람의 생각들과 지혜 그리고 윤리와 이상들이 그 자신의 신앙, 자신의 최고의 희망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참된 신앙은 심오한 반영과, 진지한 자아-비판,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도덕적 의식 위에 세워진다. 신앙은 영성화된 창조적 상상력의 영감이다.

132:3.6 (1459.6) 신앙은 신성한 불꽃의 초인간적 활동, 불멸하는 씨앗들이 이루어지도록 작용하는데, 그 씨앗은 사람의 마음속에 살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생존의 잠재자이다. 식물들과 동물들은, 자기와 동일한 입자들을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하는 기법에 의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존한다. 사람의 인간 혼(개인성)은 내주하는 이 신성의 불꽃과 관계적-연합하는 정체성에 의하여 이 세상의 죽음으로부터 살아남으며, 그 불꽃은 불멸하는 것이고, 인간의 개인성으로 하여금 지속적이며 더 높은 차원의 진보적 우주 실존으로서 영속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인간 혼의 그 숨겨진 씨앗은 하나의 불멸하는 영이다. 혼의 두 번째 세대는, 영적이고 진보하는 실존들의 개인성 현시활동이며, 이것은 오직 이 신성한 실존개체가 그

실존의 근원, 모든 실존의 개인적 근원, 하느님, 우주 아버지께 이르렀을 때에만 끝나는 그 개인성 현시활동의 첫 번째 계승이다.

132:3.7 (1459.7) 인간의 생명은 계속 이어진다.—생존한다.—이는 그것이 하나의 우주 기능, 하느님을 찾아내는 과제를 가졌기 때문이다. 신앙-활성화된 사람의 혼은, 이러한 운명의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지할 수 없으며; 일단 이러한 신성한 목적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은 하느님 처럼—영원히—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끝날 수 없다.

132:3.8 (1460.1) 영적 진화는, 선(善)을 점점 더 많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하나의 체험이며, 그로서 악할 가능성이 대등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선(善)에 대한 선택의 최종과 진리의 깊은 인식에 대한 완벽한 수용능력을 달성과 함께, 그 정의가 잠재 악의 개념조차도 창발될 가능성을 영원히 금지되는 그러한 아름다움(美)과 거룩함에 대한 완전성이 실존으로서 나오게 한다. 하느님을-아는 그러한 혼은,

신성한 선이라는 그러한 높은 영적 차원에서 작용할 때,
의심을 일으킬 만한 어떤 악의 그림자도 드리우지 않는다.

132:3.9 (1460.2)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파라다이스 영의 현존은,
우주 아버지의 불멸적이고 내주 하는 이 영 단편과의
정체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혼을 위한 신성한
진보의 영원한 실존의 계시 약속과 신앙 서약을
성립시킨다.

132:3.10 (1460.3) 우주의 진보의 특징은 개인성 해방의 증대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자아-납득과 그로 인한
자발적 자아-억제라는 더욱 높고 높은 차원들에 대한
진보적인 달성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영적 자아-절제의
완전의 달성은, 우주 자유와 개인적 해방의 완성과 같다.
신앙은 그러한 광대한 우주 안에 적응하는 초기의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의 혼을 돌보고 관리하며, 그에 반하여
기도는, 내주하고 연관된 신성한 현존의 영적 이상들로
자신을 정체성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혼의 신앙적
충동들과 창조적인 상상력의 다양한 영감을 놀라운
정도로 통합시켜 준다.

132:3.11 (1460.4) 나본은 예수와의 다른 모든 이야기들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말들에 매우 감명을 받았다. 이 진리들은 그의 가슴속에서 계속하여 타올랐고, 그래서 그는 나중에 도착한 예수의 복음을 설교하는 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제 4 장. 개인적 사명활동

132:4.1 (1460.5) 예수는 로마에 있는 동안, 앞으로 도래할 왕국에 대한 장래의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에만 그의 모든 여가시간을 다 소비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국제적인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인종들과 계층들의 남녀 사람들에 대한 상세한 지식들을 수집하는 일에도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수많은 인간들과의 접촉들마다, 예수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육신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한 그들의 반응들을 알고 싶었고, 또한 그들의 일생을 더 풍부하고 가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무엇인가를 말하거나 행하려고 애를 썼다. 이러한 시절 동안의 그의 종교적 가르침들은, 그의 후반기 일생에 열 두 제자들의 선생이었을 때와 많은 군중들의 설교자였을 때 행했던 가르침들의 특징이었던 것과 전혀 차이가 없었다.

그의 메시지의 요지는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사실과 그의 자비라는 진리와 함께, 사람은 이 동일한 사랑 넘치는 하느님의 신앙-아들이라는 기쁜 소식이었다. 사회적 접촉에 있어서의 예수의 통상적 방식은, 그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사람들 이끌어 내어 자기와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대화는 흔히 예수가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그들이 예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끝이 나곤 하였다. 그는 질문을 하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으로써 가르치는 일에 모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그가 가장 많이 가르쳤던 사람들에게, 그는 가장 적게 말하였다. 그의 개인적 사명활동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진 자들과 걱정이 많고 낙심한 필사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는 동정심이 많고 납득해 주는 이 사람에게 자신들의 혼의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많은 위안을 받을 수 있었으며, 또한 그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 인간 존재들이 예수에게 자신들의 고민들을 털어놓았을 때, 예수는 그들의 실제 어려움들을 앞으로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의 실천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제안들을 항상 해 줄 수 있었지만, 현재의 평안과 당장의 위안이 되는 말을 해 주는 것도 간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고난을 받는 필사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그들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늘에 계시는 이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소식을 다양한 모든 방법으로 전하곤 하였다.

^{132:4.3 (1461.1)} 이러한 방법으로, 로마에 체류하는 동안, 예수는 그 곳에 있는 거의 500명 이상의 필사자들과, 애정이 넘치고 정신을 향상시키는 개인적 만남을 가졌다. 이렇게 하여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얻지 못할 여러 다른 인종들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지상 일생 중에서 이 6개월의 기간을 가장 풍부하고 유익한 시기 중의 하나로 늘 간주하였다.

^{132:4.4 (1461.2)} 아마도 예측되는바와 같이, 그렇게 재능이 많고 적극적인 사람이 세계의 중심지에서, 어떤 사업이나 또는 더욱 빈번하게는, 교육에서의 구체적인 투사, 사회 개혁, 아니면 종교적 운동과 관련하여 그의 사명활동을 확보

받고자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교섭을 받지 않는 채로, 6개월 동안이나 그러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한 제의가 12번 이상 들어왔는데, 예수는 각각의 경우마다, 적절한 말에 의해서 또는 친절한 봉사를 통하여, 영적 고결함에 대한 어떤 사상을 주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예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 일을 행하는 것—아주 작은 일이라도—을 매우 좋아하였다.

132:4.5 (1461.3) 그는 로마의 어떤 원로원 의원과 정치와 정치적 수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예수와의 이 한 번의 만남에 의하여 이 입법부 의원은 커다란 감명을 받았으며, 그는 자신의 동료들로 하여금 정부가 국민을 후원하고 부양하는 개념으로부터 국민이 정부를 후원하는 관념으로 통치 제도의 방침을 바꾸도록 유도하려고 여생동안 노력하였으나 허사였다. 예수는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사람이라는 주제에 대해 어떤 부유한 노예 소유자와 하루 저녁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클라우디오스라는 이 사람은 다음 날 117명의 자기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는 저녁 식사시간에 어느 그리스 의사를 만났는데, 그는 그의 환자들이 육체 이외에도 마음과 혼을 갖고 있다고 그에게 말해 주었으며, 그리하여 이 유능한 의사는 자기

이웃들에 대한 더욱 멀리-뻗치는 사명활동에 애를 쓰게 되었다. 그는 모든 계급에 속하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 로마에서 그가 방문하지 않은 단 하나의 장소는 대중 목욕탕이었다. 난잡한 성(性) 행위가 그곳에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친구들과 함께 목욕탕에 가는 것을 거절하였다.

132:4.6 (1461.4) 로마의 병정에게는, 함께 티버 강변을 걸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손뿐만 아니라 가슴도 용감해야 한다. 대담하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보이기에 충분할 만큼 큰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네가 상급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너의 낮은 본성으로 하여금 더 높은 본성에 복종하도록 굴복시켜야 한다. 선을 존경하고 진리를 드높여라. 추한 것들 대신에 아름다운 것들을 선택하라. 너의 동료들을 사랑하고 온 가슴을 다하여 하느님을 향하여 손이 닿도록 하라. 이는 하느님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132:4.7 (1461.5) 공개토론회의 연사(演士)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의 웅변술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고, 너의 논리는 감탄할 만하며, 네 음성은 듣기에 아름답지만, 너의

가르침은 진리와 너무 먼 것이다. 만일 네가, 너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아는 영감 어린 만족을 누릴 수만 있다면, 너는 너의 동료들을 어둠의 속박과 무지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에 너의 연설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의 후계자가 되었던 마커스였다. 시몬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의 박해자들에게 도전하고 새로운 복음 설교를 계속하였던 이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

132:4.8 (1462.1) 누명을 쓴 한 가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는 그와 함께 행정관에게 가서, 그를 대변해 줄 수있는 특별한 허락을 얻은 후에, 그 과정 중에 놀라운 연설을 하였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공의가 한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라가 위대해질수록, 가장 미천한 시민에게까지 불공정이 행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더욱 애를 써야만 할 것이다. 단지 돈과 세력이 있는 자들에게만 법정에서 공의를 베풀려고 하는 나라에는 재앙이 있으리라! 죄지은 자를 벌주는 것뿐만 아니라, 죄 없는 자를 풀어주는 것도 행정관의 신성한 의무이다. 법정의 공명정대, 공정성, 그리고 고결한-순수성 위에 한 나라의 존망이 달려 있다. 진정한 종교가 자비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시민의 정부는

공의 위에 세워진다.” 그 재판관은 그 사건의 재판을 다시 열었으며, 증거를 면밀히 검사한 뒤에 죄수를 석방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예수의 개인적 사명활동 중에서, 이 사건이 대중적인 출현에 가장 가깝게 나온 것이었다.

제 5 장. 부자에게 준 조언

132:5.1 (1462.2) 금욕주의자이며 로마시민인 어떤 부자가, 앙가몬의 소개를 받고, 예수의 가르침에 매우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여러 번의 친숙한 만남이 있은 후, 이 부자는 예수에게 그가 만일 많은 재산을 가졌다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운영하겠느냐고 물었으며, 예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지식이나 지혜나 영적 봉사를 지적 일생의 풍요나 사회생활의 고상함이나 또는 영적 일생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나는 물질적 재산은 물질적 일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다음 세대와 그 이후에 계속되는 후손들의 이익과 고상함을 위하여 쓰일 자원을 책임진, 한 세대의 현명하고 효율적인 신탁인의 자격으로서 재산들을 관리-운영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부자는 예수의 대답에 충분하게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대담하게 다시 물었다: “그러면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간직해야 합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합니까?” 하느님에 대한 그의 충성심과 사람들에 대한 그의 의무에 대한 진리를 그가 실제로 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예수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 대답하였다: “나의 선한 친구여, 네가 지혜를 진지하게 구하는 자이며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나는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나는 너에게 재물에 대한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나의 조언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며, 이 충고를 주는데 있어서, 그것을 다른 부자들의 재물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너에게, 그리고 너의 개인적 지침이 되도록 충고하는 것이다. 만일 네가 진정으로 너의 재물을 하나의 신탁물로 여기기 원한다면, 네가 그 축적된 재물에 대하여 현명하고도 유능한 청지기가 되기를 실제로 원한다면, 너의 부(富)의 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함으로써 너에게 조언을 하고자

한다: 이 재물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네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런 다음 정직한 대답을 찾도록 최선을 다 해라. 너의 많은 재산의 출처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과 같은 물질적 재산 축적에 대한 열 가지 방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132:5.3 (1462.4) 1. 상속된 재산—부모나 다른 조상들로부터의 부(富).

132:5.4 (1462.5) 2. 발견되어진 재산—본래의 땅에 있는 개발되지 않은 자원으로부터의 부.

132:5.5 (1462.6) 3. 거래에 의해 얻은 재산—물질적 상품의 물물교환에서 정당한 이익으로 얻어진 부.

132:5.6 (1462.7) 4. 부당한 재산—부당한 착취나 혹은 자신의 동료를 노예화함으로 얻어진 부.

132:5.7 (1463.1) 5. 금리로 얻은 재산—투자한 자본의 공정하고 정당한 수익 가능성으로부터의 수입.

132:5.8 (1463.2) 6. 천재적 재능으로 얻은 재산—인간 마음에서의 천재적으로 창조적이고 발명적인 부여된-자질의 보상으로 얻은 부.

132:5.9 (1463.3) 7. 우연히 얻은 재산—자신의 동료의 관대함으로
부터나 혹은 일생의 환경에서 온 부(富).

132:5.10 (1463.4) 8. 훔친 재산—부당함, 부정직, 도둑질, 혹은
사기에 의한 부.

132:5.11 (1463.5) 9. 신탁된 기금—현재나 혹은 미래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용을 위해 네 이웃들로부터 너에게 맡겨진 재산.

132:5.12 (1463.6) 10 벌어서 모은 재산—네 자신의 노동, 마음과
육체를 사용하여 네가 직접 매일 수고한 것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보수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은 부.

132:5.13 (1463.7) "그러므로, 나의 친구여, 네가 만일 너의 많은
재산에 대한 신실하고 의로운 청지기라면,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함에 있어서, 재산을 대략 이러한
열 가지의 부문으로 나누어야만 한다. 그런 다음, 그러한
각각의 몫을 공의, 공평, 공정성, 진정한 효율성이라는
법들의 현명하고 정직한 판단에 따라서 계속 관리-
운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네가 가끔 확실치 않은
상황들에 처하여, 필사자 일생의 불행한 환경 아래 고통
받는 희생자들의 괴로움을 도와주며 자비롭고 사심-없는

배려를 하는 중에서 실수를 범한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를 책망하지 않으실 것이다. 물질적 상황의 공평함과 공의에 대해서 진정으로 확실하게 알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궁핍한자에게 유리하고 불행으로 부당하게 고생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해라.”

132:5.14 (1463.8)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여러 시간을 토의한 후에, 그 부자는 좀 더 자세한 가르침을 간청하였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는 자신의 충고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재산에 대한 너의 태도에 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제안함에 있어서, 나의 조언을 단지 너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리고 네 개인적 지침으로만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나는 오직 내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질문하는 친구에 대한 답변으로 말할 뿐이다. 다른 부자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네가 명령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너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자 한다:

132:5.15 (1463.9) “1. 상속되어진 재산의 청지기로서 너는 그것의 근원을 살펴보아야 한다. 너는 정당한 재산에 대하여

현세대의 이득을 위한 공정한 몫을 제한 후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는 일에 있어서, 과거의 세대들을 대표하는 도덕적 의무 아래에 있다. 그러나 네 조상들에 의해 부당하게 축적된 재산에 내포된 어떤 부정직함이나 불공정이든지 계속 유지시킬 의무는 없다. 사기나 부당함에서 연유되었다고 밝혀진, 너에게 상속된 재산의 어떤 부분이라도, 너는 공의와 관대함 그리고 배상에 대한 네 신념에 의거하여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정당하게 상속된 너의 나머지 재산은 네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신탁자로서 안전하게 전해야 한다. 네 후손들에게 재물을 전해주는 데 있어서, 현명한 식별력과 건전한 판단력이 네 의사 결정들을 좌우해야 할 것이다.

132:5,16 (1463.10) "2. 발견에 의한 결과로 재산을 얻은 모든 사람은, 한 개별존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아주 짧은 기간뿐임을 기억해야만 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그러한 발견들을 그들과 나누어 가지도록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 발견한 자의 수고의 대가가 무시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한 자연의 숨겨진 보물의 자원으로부터

유래한 모든 이익들과 축복들을 자신만의 것이라는
이기적인 권리 주장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132:5.17 (1464.1) “3. 사람들이 상업과 물물 교환으로 세상의
사업을 수행하기로 선택하는 한, 그들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모든 소매상인들은 자신의
봉사에 대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무역업자는 그를
고용할 권리가 있다. 이 세상의 조직화된 상업에 있어서
정당한 무역과 자신의 동료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이익금을 창출한다; 이러한 모든 재산의
근원들은 공의와 정직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최고의
원칙들에 의해 판별되어야 한다. 정직한 무역업자는, 같은
종류의 거래를 하는 동료 무역업자들과 기꺼이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똑같은 이익을 남기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사업 거래들이 대규모로 수행되고 있을 때, 이러한
종류의 재산이 개별적으로는 똑같은 소득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정직하게 축적된 재산은
소유자에게 뒤이어 일어나는 분배에서 상당한 지분을
자질로서 부여한다..

132:5.18 (1464.2)

“4. 하느님을 알고 신성한 의지를 행하기를 원하는 필사자라면, 누구든지 억압에 의한 재산 착취에 가담하지 못할 것이다. 숭고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을 노예화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함으로써 부(富)를 축적하지 않을 것이고 재산-힘을 모으려고 분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이 억압된 필사자들의 땀으로부터 얻어졌을 때, 부(富)는 도덕적 저주와 영적 오점이 된다. 그러한 모든 재산은, 그런 식으로 빼앗긴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자손과 자손의 자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문명은, 고용된 노동자를 착취하는 실천 관행 위에서는 세워질 수 없다.

132:5.19 (1464.3)

“5. 정당한 재산은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람들이 빌리고 빌려주는 한, 빌려준 자본이 합법적인 재산이라면 공정한 이자를 거둘 수가 있다. 이자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기 전에, 먼저 네 자본을 깨끗하게 하라. 고리대금의 실천 관행에 굴복할 정도까지 너무 비열하고 탐욕스럽게 되지 마라. 돈의 힘을 이용하여, 너의 분투하는 동료에게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그 같은 이기적이 되려는데, 네 자신을 결코 용납하지 말라. 앎도록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네 형제로부터 고리대금을 취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마라.

132:5,20 (1464.4) "6. 만일 네가 우수한 천부적 재능에 의해 우연히 재산을 얻었다면, 만일 발명하는 자질에 대한 보상으로 너의 재산이 주어졌다면, 그러한 보상에 대해 부당한 몫을 주장하지 마라. 비범한 자질은 그의 조상들과 그의 자손들 둘 모두에게 어느 정도 빛을 지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는 인류, 국가, 그리고 자신의 독창적인 발견들을 가능하게 한 환경들에게도 의무가 있다; 자기가 수고하여 발명한 것도, 사람들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룩한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증식하는 비범한 재능을 박탈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의 공정한 분배에서 이들에 관한 모든 문제에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칙과 규정들을 세운다는 것은 사람에게 영원히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너는 먼저 사람들이 네 형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네 의도대로 상대방을 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너도 그의 의도대로 그에게 해주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공의, 정직, 공정이라는 평범한 양심의 지시가 경제적인

보상들과 사회정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바르고 치우치지 않도록, 너를 안내해줄 것이다.

132:5.21 (1464.5) "7. 관리-행정을 통해서 획득한 바르고 정당한 보수를 제외하고, 시간과 기회로 인해서 자기 손안에 떨어진 재산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개인적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우연히 얻은 재산은, 자신이 소속된 사회적, 경제적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쓰이기 위한 신탁물이라는 입장에서 간주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한 재산의 소유자들은, 노력 없이 얻은 그러한 자원에 대한 현명하고 효력적인 분배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만 할 것이다. 교양이 높은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통제하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개인적이며 사적(私的)인 소유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132:5.22 (1465.1) "8. 만일 네 재산의 어떤 부분이라도 사기 행위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만일 네 재산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부정직한 실천 관행이거나 정당하지 못한 수단에 의해서 축적된 것이라면; 만일 네 재산이 네 이웃들과의 부당한 거래에 의한 산물이라면, 잘못 얻어진 이러한 모든 소득 물을 당연히 받아야 할 주인들에게

서둘러서 반환해라. 충분한 보상을 통하여 너의 모든 부정직한 재산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132:5.23 (1465.2) "9.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한 사람이 그 재산을 신탁 관리하는 일은 하나의 중대하고 신성한 의무를 갖는다. 그러한 신용에 해를 입히거나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공정한 사람들이 허용할 수 있는 만큼의 양(量)만을 그 신탁금에서 네 몫으로 떼어놓아라.

132:5.24 (1465.3) "10. 너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노력으로 얻은 네 재산은—만약 그 일이 공정함과 공평함으로 된 것이었다면—, 진정한 네 소유이다. 그러한 재산을 간직하고 사용하는 너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네가 보기에 그것이 네 이웃들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반박할 수 없다."

132:5.25 (1465.4) 예수가 그에게 조언을 마치자, 이 부유한 로마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약속하였다: "나의 선한 친구여, 나는 당신이 위대한 지혜와 선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나는 내일부터 당신의 조언에 따라 나의 모든 재산의 관리-행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제 6 장. 사회적인 사명활동

132:6.1 (1465.5) 이곳 로마에서, 한 우주의 창조자가, 길 잃은 아이를 초조해하는 그의 어머니에게 되찾아 주느라고 몇 시간을 보낸 감동적인 사건이 또한 발생했다. 이 어린 소년은 자신의 집을 떠나서 여기저기 방황했었고, 겁에 질려 울고 있는 그 아이를 예수가 발견하였다. 그와 가니드는 도서관에 가는 길이었지만, 그 아이의 집을 찾아 주는 일에 헌신하였다. 가니드는 예수가 하였던 다음과 같은 말을 결코 잊지 못하였다: “가니드야, 대부분의 인간 존재들은 길을 잃은 아이와 같다. 사람들은 진실로, 안전과 안심으로부터 단지 짧은 거리에 있음에도, 두려움에 울고 슬픔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것은 이 아이가 집으로부터 조금만 떨어져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하다. 그리고 진리의 길을 알고 또한 하느님을 아는 확신을 즐기는 모든 자들은, 삶의 만족을 찾으려는 노력 속에 있는 자기 동료들에게 안내를 제공해주려고, 의무가 아닌 하나의 특권으로, 나서야만 한다. 이 아이에게 어머니를 찾아주는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최극의 기쁨을 누리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하느님에게 인도하는 자들은, 인간 봉사의 최극 만족을

체험한다.” 그리고 그 날 이후로, 가니드는 그의 자연적 일생의 남은 기간 동안, 길 잃은 아이를 그들의 집에 되찾아 줄까 하여, 계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보았다.

132:6.2 (1465.6) 남편을 사고로 사별한 후, 다섯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사는 과부가 있었다. 예수는 자신의 아버지를 사고로 잃었던 일에 대하여 가니드에게 이야기하였으며, 그들은 이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여러 번 갔으며, 한편으로 가니드는 음식과 옷을 제공하려고 아버지로부터 돈을 구하였다. 그들은 가장 나이든 소년이 일자리를 찾아서 그로써 그가 가족을 보살피는 일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까지 그러한 수고를 멈추지 않았다.

132:6.3 (1465.7) 그 날 밤, 고노드는 이러한 체험들에 관해서 설명을 듣다가, 예수에게 부드럽게 말하였다: “나는 내 아들을 학자나 사업가로 키우려고 하였는데, 당신은 이제 이 아이를 철학자나 자선가로 만들기로 작정하셨군요.” 그러자 예수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마 우리는 당신이 말한 그 네 가지 전부를 그가 성취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요; 그렇게 된다면, 그의 귀가 한 가지 음색 대신에 네 가지 음색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일생 속에서 네 곱절의 만족을 즐길 수 있을 것이요.”
그러자 고노드가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실제로 철학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신은 후손들을 위하여 책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책이 아니라, - 나의 사명은 이 세대와 모든 세대를 위해서 사는 것이요. 나는-” 그러나 그는 말을 멈추면서 가니드에게, “얘야, 이제 잘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하였다.

제 7 장. 로마 근처를 여행함

^{132:7.1 (1466.1)} 예수와 고노드와 가니드는, 로마를 떠나 그 변방의 지역들에 있는 흥미로운 곳들로, 다섯 차례의 여행을 하였다. 북부 이탈리아에 있는 호수를 방문하였을 때, 사람이 하느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면, 하느님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예수는 가니드와 오랫동안 이야기하였다. 호수로 올라가는 길에서, 그들은 경솔한 한 이방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평소 실천 관행과는 달리, 예수가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 자연스럽게 영적 질문들을 끌어내어 토의를 시도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가니드는 의아해 하였다.

가니드가 그의 선생에게 왜 이 이방인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느냐고 묻자,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132:7.2 (1466.2) “가니드야, 그 사람은 진리에 굶주려 있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다. 그는 도움을 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의 마음의 눈은 혼을 위한 빛을 받기 위해 열려있지 않았다. 저 사람은 구원의 수확을 위해 익지 않았다; 그가 지혜와 높은 깨달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를 준비시킬 생활의 시험과 어려움을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주어야만 한다.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 줄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에 매료되어, 그도 우리 아버지에 대하여 부득이 우리에게 물어 오게 될 것이다. 너는 하느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그를 계시할 수 없다; 원하지 않는 혼을 구원의 기쁨으로 인도할 수도 없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겪는 체험의 결과로서, 진리에 대하여 굶주려야만 한다, 아니라면, 다른 인간 존재가 그러한 동료 필사자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매개체로서 행동할 수 있기 전에, 이미 신성한 아버지를 알고 지내는 저들의 삶과 친숙하게 된 결과에 따라서, 그가 하느님을

알기를 갈망하여야만 한다. 만약 우리가 하느님을 안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실제 사업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하느님을-찾아나서는 모든 개인들이 아버지를 볼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을 찾아내는 하느님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찾아내는 것에서, 우리의 도움을 청할 것이다.”

132:7.3 (1466.3) 예수가 그 아버지와 아들 모두와 함께 하루 종일 불교에 관해 이야기를 한 것은, 스위스를 방문하였을 때 높은 산 위에서였다. 가니드는 예수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처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들을 했었지만, 그는 항상 다소 회피적인 대답을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었다. 이제는, 자기 아들의 현존 앞에서, 아버지가 예수에게 부처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하였는데, 그는 바로 대답을 듣게 되었다. 고노드가, “저는 당신이 실제로 부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132:7.4 (1466.4) “당신들의 부처는 당신들의 불교보다 훨씬 뛰어났었소. 부처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자기

민족에게 선지자였지만, 그는 고아(孤兒) 선지자였소; 내 말은, 그가 일찍이 그의 영적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오. 그의 체험은 비극이었소. 그는 하느님의 메신저처럼 살고자 그리고 가르치고자 시도했지만, 그러나 하느님 없이 그렇게 하였소. 부처는 그의 구원의 배를 필사자 구원의 피난처의 입구 바로 앞까지, 안전한 항구의 바로 앞까지 인도하였으나, 바로 그곳에서 잘못된 항해 해도 때문에, 그 선한 배는 땅 위로 올라가 버렸소. 그것은 거기서 이들 여러 세대 동안 움직임이 없이, 그리고 거의 희망도 없이 좌초되어 쉬고 있소. 그리고 당신 민족의 많은 이들이 이들 세월 내내 그 위에서 머물러 왔던 것이오. 그들은 휴식의 안전한 바다에서 소리치면 들릴만한 가까운 거리 내에 있지만, 그러나 선한 부처의 고귀한 배가 항구 바로 바깥에서 땅에 닿는 불행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있소. 그리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 선지자의 철학적 배를 포기하고 그의 고귀한 영을 포착하지 않는 한, 이 항구에 결코 들어가질 않을 것이오. 당신의 민족이 부처의 영에 참으로 머물고 있었다라면, 당신들은 영 평온,

혼 휴식,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당신들의 피난처에
오래 전에 들어왔었을 것ियो.

132:7.5 (1467.1) “고노드여, 부처가 영적으로는 하느님을
알았지만, 마음속에서 그를 분명하게 발견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유대인들은 마음속에서는 하느님을
발견하였지만, 영적으로 그를 아는 데에는 크게
실패하였소. 오늘날, 불교신자들은 하느님이 없는 철학
안에서 버둥거리고 있고, 반면에 나의 민족들은
가련하게도 생명과 해방의 구원이 되는 철학을 가지지
못한 채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소.
당신들은 하느님 없는 하나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관련되는 삶의 철학은 거의 갖고 있지 못하오. 마음속에
하느님을 영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바라보지 못한 부처는,
그의 가르침에 있어서 하나의 종교가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만약에 종교가 인류를 변화시키고 한 국가를
높여주는 것이라면—도덕적 에너지와 영적으로 연유되는
힘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였소.”

132:7.6 (1467.2) 그러자 가니드가 이렇게 부르짖었다: “선생님,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종교, 인도를 위해 충분히 훌륭하고 로마를 위해서도 충분히 거창한 것을 만들지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 종교를 야훼를 대신할 수 있도록 유대인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니드야, 종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종교는 오랜 세월을 통하여 자라나는 것이며, 반면에 하느님의 계시는, 하느님을 자기 동료들에게 나타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섬광처럼 번쩍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예언적인 말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132:7.7 (1467.3) 그날 밤, 그들이 잠자리로 돌아갔을 때, 가니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아버지와 오래도록 이야기를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가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어떤 때는 여호수아가 선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단지 졸음 섞인 말투로, “아들아, 다른 사람들도 있단다—”라고 대답하였다.

132:7.8 (1467.4) 그 날 이후, 가니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내, 자기 자신의 종교를 발전시키는 일을 계속하였다. 그는

예수의 편견 없는 마음과 공정함과 관대함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 철학과 종교에 대한 그들의 모든 토론들 속에서, 이 젊은이는 한 번도 분개심의 감정이거나 반목의 반응들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132:7.9 (1467.5) 이 인도인 청년이 우주의 창조자에게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고 제의하는 광경은, 주시하고 있던 천상의 지능존재들에게는 얼마나 굉장한 구경거리였는지! 그리고 비록 이 젊은이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의 새롭고 영속하는 종교—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느님을 사람에게 계시하는, 이 새로운 구원의 방법—를 그 때 그곳에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 청년이 가장 하고 싶었던 그것을, 그는 의식하지 못한 채, 실재로는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 졌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영적 가르침과 인도함에 의해 깨우쳐지고 반영되어지는 인간의 상상력이 온 가슴으로 그리고 사심-없이 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이 되고 싶어 하는 그것은, 아버지의 성스런 의지를 행하려는 필사자의 봉헌의 정도에 따라서 켈 수 있을 정도로 창조되어 간다. 사람이 하느님과 함께 동반자관계

안에서 나아갈 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또한 일어나고 있다.

제 133 편 로마에서 돌아옴

133:0.1 (1468.1) 로마를 떠나려는 준비를 마칠 때까지, 예수는 자기 친구들 중 아무에게도 작별인사를 하지 않았다. 다마스쿠스의 서기관은 예고 없이 왔다가, 같은 방법으로 떠나갔다. 그를 알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린 것은 1년이 거의 지나갔을 때였다. 이 두 번째 해가 다 가기 전에, 예수를 알고 지냈던 작은 집단의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과 그와 함께 지냈던 시절의 즐거웠던 서로의 기억들로 인하여 함께 모이게 되었다. 그리고 스토아학파, 견유학파, 신비 예배종파자들로 구성된 이 소규모의 집단은, 불규칙적이고 비공식적인 이러한 모임을, 그리스도교의 초기 설교자들이 로마에 오게 되었을 때까지도 계속하고 있었다.

133:0.2 (1468.2) 고노드와 가니드는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에서 너무 많은 물건들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소유물을 수송편으로 미리 타렌툼까지 보냈으며, 그 동안 세 여행자는

거대한 아피아 도로를 따라 이탈리아를 가로질러 한가하게 도보로 여행하였다. 이 여행에서 그들은 온갖 종류의 인간들을 만났다. 많은 고귀한 로마 시민들과 식민지 주민인 그리스인들이 이 길을 따라 살고 있었지만, 비천한 노예들의 수많은 자손들도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133:0.3 (1468.3) 어느 날, 타렌툼까지 가는 길의 중간쯤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쉬는 동안, 가니드는 예수에게 인도의 카스트 계급제도에 대해서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직설적인 질문으로 물었다. 예수는 말했다: “비록 인간 존재들이 여러 길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는 서로 다르지만,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영적 세계 안에서는 모든 필사자가 동등한 자리에 발을 딛고 서 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오직 두 집단의 필사자들이 있을 뿐이다. 그의 뜻을 행하려고 갈망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이다. 우주가 생명체가 거주민이 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마찬가지로 두 개의 커다란 부류를 식별한다: 그것은 하느님을 아는 자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다. 하느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은 주어진 어떤 영역에서든지 그 영역의 동물로 간주된다. 인류는 서로 다른 분별된-자격에

따라서, 그들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도덕적으로 보이는 대로, 것처럼 많은 부류들로 적절하게 나누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들 다른 부류의 필사자들이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들은 동등한 자리에 발을 딛고 서 있다; 하느님은 참으로 개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비록 너희가 지적, 사회적, 도덕적인 문제에서, 차별되는 인간 능력과 부여된-자질에서의 인지로 부터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경배를 위해 모였을 때에는, 사람의 영적 형제신분 안에서 그 어떠한 차별도 만들면 안 된다.”

제 1 장. 자비와 공의

133:1.1 (1468.4) 그들이 타렌툼에 가까이 당도한 어느 날 오후에 길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들은 매우 거칠고 난폭한 어느 소년이 자기보다 작은 한 아이를 괴롭히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예수는 폭행을 당하는 그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 급히 달려갔으며, 그를 구해낸 후에는 그 아이가 충분히 멀리 도망갈 때까지 그 가해자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예수가 그 어린 깡패를 놓아주는 순간, 가니드가 그 소년에게 달려들어 그를 호되게 때려주기 시작하였으며, 예수가 즉시 가니드를

저지시키자 그는 매우 놀랐다. 가니드를 말리면서 겁먹은 그 소년을 도망가게 해주자, 그 젊은이는 숨을 돌리기가 무섭게 흥분하여 이렇게 외쳤다: “저는 선생님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선생님이 그 어린아이를 구해야만 했다면, 그 아이보다 크고 공격적인 그 소년에게 벌을 주는 공의도 당연히 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133:1.2 (1469.1) “가니드야, 네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자비의 사명활동은 항상 개별적인 일이지만, 공의에 의한 처벌은 사회나 정부 또는 우주의 관리-행정 집단들의 기능이다. 나는 한 개별존재로서 자비를 베풀 권한이 있고; 곤경에 처한 그 아이를 구해주어야만 하였으며, 가해자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완력을 사용하는 것도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방금 내가 행한 일이었다. 나는 곤경에 처한 그 아이의 해방을 성취하였고; 그것으로 나의 자비의 행위는 끝이 난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나는 약한 자가 도망하기에 충분한 시간만큼 가해자를 힘으로 붙잡아 두었고, 그 후에는 그 일에서 물러났던 것이다. 나는 나아가 가해자를 판결하려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고, 그의 동기—자기 이웃을 공격하도록 만든 모든 것들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에 대해 판결하고, 그런 후에 그의 그릇된 행동에 대한 배상으로서 내 마음이 지시했었을 처벌을 가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가니드야, 자비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지만, 공의는 정확한 것이다. 공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징벌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두 사람조차도 일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겠느냐? 공정한 형벌로, 한 사람은 40대의 매를, 다른 사람은 20대의 매를, 또 어떤 다른 이는 격리 감금을 부과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책임이 집단에게 맡겨지거나 혹은 그 집단이 뽑은 대표자들에게 맡겨지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모르겠느냐? 우주에서는, 그것의 동기뿐만 아니라 모든 그릇된 행동의 선행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존재들에게 심판이 맡겨져 있다. 모든 문명화된 사회와 잘 조직된 우주에서는, 공의의 실행은 정당한 심판에 의한 의로운 판결 결과의 집행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특권은 세상들의 사법집단과 모든 창조에 해당되는 높은 우주들의 전지(全知)한 관리-행정자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133:1.3 (1469.2) 그들은 여러 날 동안 자비를 현시하는 것과 공의를 실시하는 것의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가니드는 예수가 개인적 싸움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이유를 부분적으로나마 납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니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였는데, 그는 그것에 대해 충분히 만족스러운 답변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그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그렇지만 선생님, 만약 힘이 더 세고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 선생님을 공격하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예수는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우주에게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사랑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밝히기를 꺼려하였기 때문에, 그(예수)는 그의 질문에 충만하고 만족할 만한 답변을 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133:1.4 (1469.3) “가니드야,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너를 무척 혼란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으며,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다. 우선, 나의 개인에게 주어진 모든 공격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가 하느님의 아들—육신 속에 있는 나의 형제—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것이며, 만약 그가 도덕적 판단과 영적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면, 나는 주저 없이 가해자에게 발생될 결과에 상관없이, 내 온 힘을 다하여 나 자신을 방어할 것이다. 그러나 자아-방어라 할지라도, 나는 아들관계를 이룩한 지위에 있는 이웃에게는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를 향한 그의 폭행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채로 그리고 미리 그에게 응징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로 하여금 그러한 공격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여 중지시킬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는 그 공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가니드야,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배려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헌신하였다. 진정한 해(害)가 나에게 미칠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나를 배척하는 자들이 나에게 가하려는 어떤 행동에 의해서든지 내 일생의 사명이 실제로 위태로워지리라고는 믿지 않으며, 두려워할 만한 어떤 폭행도 우리 친구들로부터 당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나는 우주 전체가 나에게 호의적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나는 모든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심에서 우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만능의 이 진리를 믿고자 한다.”

133:1.5 (1470.1) 그러나 가니드는 충분하게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이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 번 이야기하였고, 예수는 그에게 자신의 소년시절의 체험들과 석공의 아들이고보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었다. 야고보가 예수를 방어하는 것을 자신의 일로 삼았던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가니드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선생님과 같은 친절한 사람을 공격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고, 만약 어떤 이가 생각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마치 선생님이 언제나 곤경에 빠진 사람을 보고는 구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을 재빨리 도와줄 어떤 필사자가 틀림없이 가까이에 있게 된다는 것이군요. 선생님, 가슴으로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머릿속으로는, 제가 만약 야고보였다면, 선생님이 방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끼로 공격했다고 여겨지는 무뢰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을 저는 매우 즐겼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맴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곤경에 빠진 친구들을 돌보는 일에 많은 시간을 제공하시기

때문에—선생님에게는 언제든지 방어해 줄 어떤 사람이 항상 곁에 있을 것이므로—, 선생님의 삶의 여정이 상당히 안전하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자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니드야, 그 시험은 아직 임하지 않았으며, 그 때가 이르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자아-방어와 무저항에 관한 어려운 이 주제에 대하여 이 소년이 자기 선생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전부였다. 그는 다른 기회를 포착하여, 조직된 사회는 올바른 권한을 시행함에 있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다는 견해를 예수로부터 얻어낼 수 있었다.

제 2 장. 타렌툼에서 배를 탐

133:2.1 (1470.2) 배에서 화물을 내리기를 기다리면서, 선착장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여행자들은 한 남자가 그의 부인을 학대하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예수는, 그의 습관대로, 공격에 놓여있는 개인을 대신 도우려고 중간에 끼어들었다. 그는 성난 남편 뒤로 걸음을 옮겨 다가가서,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톡톡 두드리며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과 잠깐만 사적으로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분노한 남자는 그러한 접근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가, 잠시

당황하면서 주저하던 순간이 지나자, 더듬거리며 말했다.
“어—왜요—그렇시다; 당신은 나한테 뭘 원하십니까?”
예수는 그를 한 쪽으로 데리고 갔고,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여기는 바로는, 뭔가 끔찍한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힘센 남자가 자기
아내, 자기 아이들의 어머니를, 더구나 이곳 모든 이들의
눈 앞에서, 공격하도록 그를 이끈 것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로 당신이 내게 말해주기를 열망합니다. 내가
확신하건대, 당신은 틀림없이 어떤 선한 이유를 가졌기에,
이러한 폭행을 일으킬만한 감정을 당신이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의 남편으로부터 그러한 대접을 받아
마땅할만큼, 무슨 일을 여인이 한 것입니까? 내가 당신을
보면서 나는 당신 얼굴에서, 자비를 보이려는 열망이
아니라면, 공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식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실례를 무릅쓰고 말하건대, 당신이 만약
길가에서 강도들에게 공격 당하는 나를 발견했다면,
당신은 주저없이 나를 구조하려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 일생의 여정에서 그러한 용감한 일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자, 친구여, 무엇이
문제인지 나에게 말해 주세요. 여인이 무슨 잘못된 일을

했나요? 아니면 당신이 어리석게도 이성을 잃고 생각 없이 그녀에게 폭행을 했나요?” 이 사람의 가슴을 감동시킨 것은, 예수가 말했던 그 많은 말보다는, 그의 발언의 결론에서 예수가 그에게 베풀어 내려준 친절하고 동정 어린 미소였다. 그 사람은 말했다: “내가 여기는 바로는, 당신은 견유학파의 사제이시군요, 그리고 나를 자제시켜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 아내가 큰 잘못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선한 여자입니다, 하지만 대중들 앞에서 나를 나무라는 태도로 내 화를 돋우고, 그래서 제가 성질을 참지 못합니다. 저의 자아-통제의 부족함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해 전에 저에게 더 나은 길을 가르쳐준 당신의 형제들 중의 한 분에게 제가 전에 했던 맹세에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애쓸 것을 약속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133:2.2 (1471.1) 그러자 예수는 그에게 작별인사를 하면서 말하였다: “나의 형제여, 여자가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남자에게 권한을 주지 않는 한, 남자는 여자에 대하여 그 어떤 정당한 권한도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아내는 당신과 함께 하는 일생을 통하여 두루 나아가며, 당신이 그 전투에서 싸우는데 도움을 주며,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무거운 짐의 훨씬 많은 몫을 떠맡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종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봉사에 대한 보답으로, 남자가 자기 아이들을 잉태하고, 낳고, 길러야 하는 동반자로서의 여인에게 남자로서 줄 수 있는 특별한 보호를, 당신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공정할 뿐입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게 기꺼이 증여하는 사랑이 넘치는 보살핌과 배려는, 남자가 창조적인 그리고 영적인 자아-의식의 더욱 높은 차원에 달성한 것을 재는 척도입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불멸 혼의 잠재를 자신 안에 소유하기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존재들을 창조하려고 그들이 협력함에 있어서, 하느님과 동반자라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주의 자녀들의 영 어머니를 그 자신과 동등한 분으로 대우합니다. 당신 자녀들의 삶 안에서, 당신 자신들을 재생산하는 신성한 체험을 할만큼 당신과 충분히 공유하는 그러한 어머니 동반자와, 당신의 일생과 그에 관계된 모든 것을 똑같은 조건으로 공유하는 것은, 하느님과-같음 입니다. 만약 하느님이 당신을 사랑하듯이, 당신이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만 사랑할 수 있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광대한 우주의 모든 영 자녀의 어머니, 무한한 영을 영예롭게 하고 드높이는 것처럼,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133:2.3 (1471.2) 그들은 배를 타기 위하여 가면서, 말없이 포옹하며 서 있는, 눈물을-글썽이는 부부의 광경을 뒤돌아 보았다. 그 사람에게 하였던 예수의 메시지 중에서 후반 부분을 듣고, 고노드는 하루 종일 명상에 잠겼고, 인도에 돌아가면, 자기 가정을 재조직하기로 다짐하였다.

133:2.4 (1471.3) 니코폴리스로의 여정은 순탄하였지만, 바람의 방향이 좋지 않아 속도가 느렸다. 세 사람은 로마에서의 그들의 체험들에 대해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예루살렘에서 서로 처음 만난 이래로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회상하였다. 가니드에게 개인적 사명활동의 영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배의 항해사 일을 시작하였지만, 둘째 날에, 깊은 종교적 바다에 빠지자, 자기를 도와달라며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133:2.5 (1471.4) 그들은 니코폴리스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으며, 그 도시는 아우구스투스가 50년 전에 악티움의 전투를 기념하기 위하여 "승리의 도시"로 세운 곳이었고, 그가 그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집단을 이끌고 야영을 했던 장소였다. 그들은 배에서 만나게 된 그리스 사람인, 예라미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는 유대인의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세 번째 선교 여행 때 예라미의 아들과 함께 바로 이 집에서 겨울을 지내기도 하였다. 그런 후 그들은 같은 배를 타고 니코폴리스를 떠나 아카이아라는 로마 식민지의 수도인 고린도로 향해하였다.

제 3 장. 고린도에서

133:3.1 (1471.5) 그들이 고린도에 도착할 즈음에, 가니드는 유대 종교에 많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이 유대 회당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에게 함께 예배봉사에 참석하자고 제안하게 된 것은 전혀 뜻밖의 일이 아니었다. 그 날 그들은 박식한 랍비의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강연을 들었으며, 예배봉사 후에 그들은 이 회당의 우두머리 통치자인 크리스보를 만났다. 그들은 그

회당 예배봉사에 여러 차례 다시 갔는데, 주로 크리스보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가니드는 크리스보와 그의 아내 그리고 5명의 아이들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이 그의 가족 일생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관찰하는 것을 매우 즐겼다.

133:3.2 (1472.1) 가니드가 가정생활을 공부하는 동안, 예수는 크리스보에게 종교 생활에 대한 더 나은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예수는 진취적인 이 유대인과 20번 이상 만났으며; 여러 해가 지난 후, 바울이 바로 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자, 유대인들이 그의 복음을 배척하고 더 이상 그에게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므로, 그가 이방인들에게로 갔을 때, 크리스보가 그의 온 가족과 함께 그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점과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에서 조직한 그리스도교 교회의 주요 지지자들 중의 하나가 되었던 것은 뜻밖의 일이 아니었다.

133:3.3 (1472.2) 바울은, 훗날에 실라스 그리고 디모데와 합세하여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설교를 하였을 때, "인도 상인 아들의 유대인 가정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133:3.4 (1472.3) 고린도에서 그들은 세 대륙(大陸)으로부터 온 모든 종족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곳은 알렉산드리아와 로마 다음으로 지중해 제국에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였다. 그 도시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가니드는 거의 해발 2,000피트 위에 서 있는 도시를 방문하는 일에 한 번도 싫증을 내지 않았다. 또한 그는 여가시간 중 많은 부분을 유대 회당과 크리스보의 집에서 보냈다. 그는 유대 가정에서의 여자의 위치를 알고 나서, 처음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고 나중에는 매료되었는데; 그것은 이 젊은 인도인에게는 하나의 계시와도 같았다.

133:3.5 (1472.4) 예수와 가니드는 또 다른 유대인 가정으로부터 자주 초대를 받았는데, 회당 옆에 위치한 믿음이 깊은 상인인 유스도의 집이었다. 그리고 훗날에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그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는 인도 청년과 그의 유대인 가정교사와의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러는 동안 바울과 유스도는 그토록 현명하고 총명한 유대인 선생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였다.

로마에 있을 때, 가니드는 예수와 그들과 함께 공중목욕탕에 가기를 거절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 후에 이 젊은이는 예수로 하여금 성(性)의 관계에 대하여 좀 더 자기 의견을 표현하도록 여러 차례 유도해 보려고 하였다. 예수는 그 청년의 질문들에 대답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길게 토의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듯이 보였다. 어느 날 저녁에, 그들이 성벽이 바다로 이어지는 곳 가까이로 나가서 고린도를 산보하고 있었을 때, 두 매춘부가 말을 걸어 왔다. 가니드에게는, 예수와 최고의 이상(理想)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과 그는 부정(不淨)하거나 혹은 악의 기미가 있는 모든 것을 혐오한다는 관념이 당연하게 몸에 배어 있었으므로; 그는 이러한 여자들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이면서, 그녀들에게 비키라고 거칠게 손짓을 하였다. 이것을 본 예수와 가니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의 호의는 고맙지만, 너는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얘기하면서, 비록 어쩌다가 그들이 실수를 범한 자녀가 되어있다 해도, 그렇게 주제넘게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누구기에 이 여자들에 대한 심판 자리에 앉겠는가? 그들이 먹고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한 수단에 의지하도록 그들을 몰아붙인 모든 환경들을 네가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잠시 멈추자꾸나.” 매춘부들은 가니드에게보다는 오히려 예수에 더욱 더 놀랐다.

133:3.7 (1472.6) 그들은 그곳에서 달빛 아래에 서 있었고, 예수는 이렇게 계속하여 말하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물, 신성한 영(靈)이 모든 인간 마음 안에서 살고 있다. 이 선한 영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발견하여 그분을 알도록 도움을 주는 일에 언제나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한 필자사안에는 개별존재와 종족의 안녕을 위해 봉사하도록 창조자께서 넣어주신 많은 자연의 물리적 경향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남자와 여자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납득하려는 노력에서, 그리고 대체로 그렇게 이기심과 죄에 지배되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의 다양한 어려움과 맞붙어 싸우려는 노력에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가니드야, 이 두 여인들 중 누구도 의도적으로 사악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다. 그들이 많은 슬픔을 체험했다는 것을 그들의 얼굴 표정으로 나는 말할 수 있다; 그들은 분명히 보이는 잔인한 숙명의 손에서 매우 고통을 겪어왔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일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절망의 경계에 이르는 낙심 안에서, 그들에게 닥친 그 시간의 압력에 굴복하였고, 그리고 어쩔 수없이 택해야 하는 생계수단으로, 그들에게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러한 아무 맛도 없는 수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가니드야, 어떤 자들은 실제로 가슴에서부터 악하다; 그런 사람들은 비열한 일들을 행하려고 고의적으로 선택한다, 그러나 네가 지금 이렇게 눈물 젖은 얼굴들을 들여다볼 때, 나쁘다거나 간악한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가 그의 대답을 듣기 위해 말을 멈추자, 가니드의 음성은 막혀 버렸고 머뭇거리며 간신히 이렇게 대답하였다: “선생님,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저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그들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용서한 것을, 그분을 대신하여 내가 말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너를 용서했다는 것을 그들을 대신하여 내가 말하겠다. 자, 너희 모두는 나와 함께 친구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우리는 간단한 음식을 청한 후, 앞으로의 새롭고 나은 일생을 위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자.” 놀란 여자들은 이때까지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서로를 쳐다보다가 남자들이 길을 이끄는 대로 조용히 따라갔다.

133:3,8 (1473.1)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예수가 가니드와 함께 이러한 두 낯선 이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을 때, 유스도의 아내의 놀라움을 상상해 보라: “이런 시간에 찾아온 것에 대해 용서하기 바라며, 가니드와 내 몫으로 약간의 음식을 주면 좋겠고, 새로-발견한 우리 친구들도 또한 영양이 필요하니, 이들 우리 친구들과 더불어 나누어 먹고자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함께 이 여인들이 일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법을 조언하는 데에, 너희가 관심이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오게 되었다. 저들이 너희에게 자기들의 사연을 이야기 해 주기도 하겠지만, 내가 추측컨대 그들은 많은 곤경을 겪어 왔으며, 여기 당신의 집에 지금 있는 그들의 현존이,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선한 사람들을 알기를 열망하고 있는지를, 자신들이 될 수 있는 용감하고 고귀한 여자가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하늘의 천사들에게도—보여줄 기회를 얼마나 기꺼이 끌어안을 지를 증언하고 있다.”

133:3.9 (1473.2)

유스도의 아내인 마르다가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자, 예수는 뜻밖에 작별을 고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시간도 너무 늦었고 또한 이 젊은이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고자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인 너희들—세 여인들—을 여기에 남겨 두고 먼저 떠나는 것을 용서하기 바란다. 너희가 땅에서의 새롭고 좀 더 나은 일생과 그리고 그 이후의 영원한 일생을 위한 계획을 짜는 동안에, 나는 너희가 영적으로 인도 받도록 기도할 것이다.”

133:3.10 (1473.3)

그렇게 해서 예수와 가니드는 그 여인들에게서 떠났다. 이때까지 두 매춘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가니드 역시 마찬가지로 말을 잃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마르다도 말이 없었지만, 그녀는 곧 이러한 난국에 대처하였고, 낯선 이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가 그녀에게 기대하였던 모든 일을 이행하였다. 이 두 여인들 중에 나이든 이는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영원한 삶에 대한 밝은 희망을 안고 세상을 떠났고, 어린 여인은 유스도의 일터에서 일하였으며, 나중에는 고린도에서의 첫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일생동안 회원이 되었다.

133:3.11

(1473.4)

예수와 가니드는 크리스보의 집에서 가이우스라는 사람을 여러 차례 만났는데, 그는 나중에 바울의 충실한 지지자가 되었다. 그들은 두 달 동안 고린도에서 수십 명의 훌륭한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고, 비공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접촉의 결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반 이상은 훗날에 발족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133:3.12 (1473.5)

바울이 처음으로 고린도에 갔을 때에는, 장기간 동안 방문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노고에 대비하여, 그 유대인 개인교사가 길을 얼마나 잘 준비해 놓았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더욱이, 그는 아퀼라와 프리실라에 의해 큰 세력이 이미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아퀼라는 견유학파의 한 사람이었고 로마에서 예수와 접촉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 부부는 로마에서 온 유대인 피난자들이었고 바울의 가르침을 신속하게 받아들였다. 그들도 역시 천막-만드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같이 일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 4 장. 고린도에서의 개인적 일

133:4.1 (1474.1) 예수와 가니드는 고린도에서 많은 재미있는 일들을 체험하였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과 친밀한 대화를 하였으며, 그들 모두는 예수로부터 받아들인 가르침들로 말미암아 큰 이익을 얻었다.

133:4.2 (1474.2) 방앗간 주인에게는, 삶의 체험이라는 방앗간에서 진리의 곡식을 가는 것이라고 가르침으로써, 신성한 생명에 대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 데 있어서 아직 아기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우유를 주어라. 너의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는 사명활동에서, 매력적인 형태로서 그리고 너에게 질문하는 각 사람의 접수성의 수용능력에 알맞은, 영적 음식으로 봉사하라.”

133:4.3 (1474.3) 그는 로마의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시저에게 속한 것들은 시저에게, 그리고 하느님께 속한 것들은 하느님께 바쳐라. 오로지 신(神)에 의해서만 요구될 수 있는 경의를, 오만하여진 시저가 스스로 취하려고 하지 않는 한, 하느님께 대한 진실한 경배와

황제에 대한 충성스러운 봉사는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만약 네가 하느님을 알게 되면, 그에 대한 충성은, 덕망 있는 황제에 대한 너의 헌신에 있어서 더욱 충성되고 신실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133:4,4 (1474,4) 미트라 예배종파의 진지한 영도자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영원한 구원의 종교를 찾는 일은 잘하고 있지만, 그러한 영광스런 진리를 사람이 만든 신비들과 인간의 철학 안에서 추구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영원한 구원에 대한 신비가 너 자신의 혼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하늘의 하느님께서 자신의 영이 네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보내신다는 것과, 이 생명을 통하여 그리고 죽음의 문전에서부터 하느님이 그의 자녀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다리시는 영원한 최고의 빛에 다다를 때까지, 진리를-사랑하고 하느님께-봉사하는 필사자들을 이 영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모르겠느냐? 그리고: 만약 네가 것처럼 되기를 진정으로 열망한다면, 하느님을 아는 너희는 이미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라.”

133:4.5 (1474.5)

쾌락주의 학파의 선생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최선을 선택하며 선을 존중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가슴 속에서의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실현으로부터 유래되는 영적 권역 안에 체현되는 필사자 일생의 더욱 위대한 것들을 알아보는데 실패하는 것이면, 과연 네가 현명할까? 인간의 모든 체험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하느님을 아는 일을 실현하는 것이며, 그의 영은 네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공유하는 아버지, 모든 창조의 하느님이시고 우주들의 주님이신 그를 직접 만나기까지의 길고도 거의 끝이 없는 여정으로 너를 인도해 주려고 애쓰고 있다.”

133:4.6 (1474.6)

그리스의 건축자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친구여, 네가 사람들의 물질적인 건물들을 짓는 것처럼, 네 혼속에 있는 그 신성한 영을 닮도록 영적 성격을 발전시켜라. 이 세상에서 건축자로 성공하는 일이, 하늘의 왕국의 영적 아들이 되는 일보다 더 앞서도록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시간의 맨션들을 짓는 동안, 너 자신을 위해 영원의 맨션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라. 한 도시가 있으니 그

기초는 정의로움과 진리이며, 그것의 건축자이자 만드
는 이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언제까지나 기억하라.”

133:4.7 (1474.7) 로마의 법관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사람들을 재판할 때, 너 자신도 언젠가는 우주의 통치자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라.
공정하게 그리고 관대하게 판결하되, 너도 언젠가는 최극
중재자의 힘에 의한 자비로운 동정심을 간청하게 될
것임을 염두에 두어라. 너 자신이 비슷한 경우로 심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판결함으로써, 글자 그대로의
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법의 마음에 의해서 안내를
받도록 해라. 그리고 네 앞에 불러온 자들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하여 공정함에 의해 조절된 공의를 베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도 언젠가는 모든 지상의 재판관 앞에 서서
자비에 의해 완화된 공의를 기대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133:4.8 (1475.1) 그리스 여인숙의 여주인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고자의 자녀들을 대접하는 사람으로서
친절을 베풀라. 하느님께서 사람들의 가슴속에 거하시기
위하여 내려 보내신 자신의 영이 내주(內住)하는,
그리하여 신성한 영으로 이 모든 선물들을 증여한

파라다이스 아버지를 알도록 그들의 마음을 변환시키고 그들의 혼을 인도하려고 애쓰시는, 개인들 안에 있는 하느님에게, 네가 사명활동한다는 사실이 점점 증가하는 실현을 이루고 그를 통하여, 일상적인 단조롭고 힘든 일들을 예술적인 높은 경지로 끌어 올려라.”

133:4.9 (1475.2) 예수는 어느 중국인 상인과 여러 차례 만났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예수는 그에게 권고하였다: “ 하느님은 너의 참된 영 조상이시니, 오직 하느님만을 경배하라. 아버지의 영은 언제까지나 네 안에서 너와 함께 살고 있으며, 그리고 너의 혼-방향이 항상 하늘을 향하도록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불멸의 영이 무의식적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에, 네가 만일 따른다면, 너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드높아지는 길에서, 계속하여 나아갈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르게 될 때는,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네가 그를 추구함으로써 점점 더 그와 같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자, 장 씨여 잘 있어라, 하지만 단지 한 계절 동안이니, 이는 영과 혼들의 아버지가 파라다이스에-묶여있는 자들을 위하여 즐거움이 가득한 여러 멈출-장소들을 마련해 온, 빛의 세계들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33:4.10 (1475.3) 영국에서 온 여행자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형제여, 나는 네가 진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진리의 아버지의 영이 네 안에 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안한다. 너는 네가 지닌 네 혼의 영(靈)과 진지하게 이야기하려고 언제라도 애쓴 적이 있었는가? 그러한 일은 참으로 어렵고, 성공에 대한 의식을 얻는 것도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물질적 마음이 그 속의 내주하는 영과 교통하려는 모든 성실한 시도는 확실하게 성공을 거두는데, 것처럼 드뭄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러한 놀라운 인간적 체험들의 대부분이 것처럼 하느님을-아는 필사자들의 혼 속에 초(超)의식적 등록으로 오랫동안 남는 것이 틀림없다.”

133:4.11 (1475.4) 가출한 소년에게, 예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도망갈 수 없는 두 가지—하느님과 네 자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가슴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하늘 아버지의 영과 네 자신을, 너는 가지고 있다. 아이야, 네 자신을 속이려고 시도하는 일을 멈추어라; 일생의 사실들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의 용기 넘치는 실천 관행에 이르기까지 진지하라;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느님과의 아들관계에서의 확신과 그리고 영원한

일생에서의 확실성을 굳게 지녀라. 지금 오늘부터, 실제 사내, 용감하게 그리고 총명하게 일생을 부딪칠 각오를 가진 사내가 되리라는 목적을 두어라.”

133:4.12 (1475.5) 마지막 시간이 임한 사형수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여, 너는 악한 시대에 태어났다. 너는 길을 잃어버렸고; 범죄의 올라미에 걸려들었다. 너와 대화를 나눈 결과, 나는 네가 이 세상의 생명을 대가(代價)로 지불해야 할 만큼의 악한 일을 계획적으로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그러나 너는 그러한 악을 행했고, 너의 동료들은 너를 죄인으로 심판하였다; 너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너나 나나, 국가 자체가 선택하는 방식 안에 있는 자아-방어의 이러한 권리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너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부과된 벌을, 인간적으로는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너의 동료들은 너의 행위에 의거하여 판단을 하였지만, 네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의 심판관이 있는데, 그는 너의 실제 동기와 더욱 좋은 의도로써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만약 너의 참회가 순수하고 너의 신앙이 진지한 것이라면, 너는 하느님의 심판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너의 실수로 인하여 사람에 의해 사형선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은, 하늘에 있는 법정에서 네 혼이 공의를 구하고 자비를 누릴 기회에서 어떤 편견도 주지 않는다.”

133:4.13 (1476.1) 예수는 여기에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굶주린 혼들과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 이 세 여행자는 고린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교육의 중심지로 더욱 알려진 아테네를 제외하면, 고린도는 이러한 로마 통치 시대 동안에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으며, 번성하는 이 상업의 도시에서 머문 두 달은, 그들 셋 모두에게 많은 가치 있는 체험을 얻을 기회를 잘 제공하였다. 이 도시에서의 체류는 로마에서 돌아가는 길에 들렀던 모든 장소들 중에서 가장 흥미 있는 것들 중의 하나였다.

133:4.14 (1476.2) 고노드는 고린도에서 많은 수입을 얻었으며, 마침내 그의 사업상의 일을 모두 완결했다. 그래서 그들은 아테네로 항해할 준비를 하였다. 10마일 정도 되는, 고린도의 어느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는, 육로로 옮겨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배로 여행하였다.

제 5 장. 아테네에서—과학에 대한 토의

133:5.1 (1476.3) 그들은 곧 그리스의 과학과 학문의 오래된 중심지에 도착하였고, 가니드는 그리스에, 그것도 아테네에 와 있다는 생각에 흥분하였는데, 그 곳이 자기 나라인 인도 국경까지 한 때 지배하였던 알렉산더 제국의 문화적 중심지였기 때문이었다. 사업상 볼일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고노드는 많은 흥미 있는 장소들을 방문하고, 다방면의 학식을 가진 선생이 자기 아들과 주고받는 재미있는 토의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와 가니드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133:5.2 (1476.4) 아테네에는 하나의 위대한 대학이 여전히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 그 세 사람은 그 대학의 강의실들을 자주 방문하였다. 예수와 가니드는 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박물관에서의 강의에 참석하였을 때, 플라톤의 가르침에 대해 면밀하게 토론을 했었다. 그들 모두는 아직도 도시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의 예술 작품들을 관람하였다.

133:5.3 (1476.5) 그 아버지와 아들은, 예수가 그들의 숙소에서 어느 날 저녁 그리스 철학자와 과학에 대해 토의한 내용을 매우 재미있게 들었다. 이 현학자(衎學者)는 거의 세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였고, 그가 자신의 강연을 완결하자, 예수가 말하였는데, 현대적인 사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33:5.4 (1476.6) 과학자들이 언젠가는 에너지, 중력, 빛, 전기에서의 기세 현시활동을 측정하겠지만, 그 과학자들은 이들 우주 현상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과학적으로) 말해 줄 수 없다. 과학은 물질적 에너지 작용들을 다루며; 종교는 영원한 가치들을 다룬다. 진정한 철학은, 이러한 양적인 관찰과 질적인 관찰을 상관관계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는 지혜로부터 태동된다. 순전히 물질적인 과학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머는 것은 그만 두고라도, 수학적 자부심과 통계학적 자기중심주의에 시달리게 되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133:5.5 (1476.7) 논리는 물질적 세상에서 유효하고, 수학은 물질적인 것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지만; 일생의 문제들에 적용될 경우에는 그 두 가지 모두, 전적으로 믿을 만하거나 틀림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일생은 전적으로 물질적인 것만은 아닌 현상들을 포용한다. 만약 한 사람이 양 한 마리의 털을 깎는데 10분을

소요된다면, 수학은 열 사람이 1분에 그 양의 털을 깎을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수학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닌데, 왜냐하면 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서로에게 방해가 되어 일이 매우 지연될 것이기 때문이다.

^{133:5.6 (1477.1)} 만약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단위의 지적 그리고 도덕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면, 수학은 열 사람이 10배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개인성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개인성 관계적-연합은 단순한 산술적 합계라기보다는 오히려 관련된 개인성들 숫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합계가 사실에 더 가까울 것이다. 조화-협동하여 일하는 조화된 인간 존재들의 사회 집단은 그 부분들의 단순한 합계보다는 훨씬 더 큰 기세를 나타낸다.

^{133:5.7 (1477.2)} 양(量)은 하나의 사실로 정체성이 확인될 수 있고, 그것으로 과학적 획일성이 되어간다. 본질특성인 질(質)은 마음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치들에 대한 하나의 추정 평가를 대표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개별존재의 체험으로 남아야만 한다. 과학과 종교가 둘

모두 덜 독단적이 되고 비평에서 더욱 관용적이 되면,
철학은 그러면 우주의 지능적 이해 안에서 합일을 이루기
시작할 것이다.

133:5.8 (1477.3) 만약 너희가 우주의 작용들을 실재성으로 인식할
수만 있다면, 합일은 조화우주 우주 안에 존재한다. 실제의
우주는 영원한 하느님의 모든 자녀에게 호의를 갖고 있다.
진짜 문제는: 사람의 유한한 마음이 논리적이고 진실하고
일치하는 생각의 합일체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주를 아는 이 마음 상태는, 양적인 사실과
질적인 가치가 파라다이스 아버지 안에서 공통의
원인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만 소유될 수
있다. 실체에 대한 그러한 개념은, 우주 현상의 의도적인
합일에 대한 확대된 통찰력을 갖게 한다; 그것은 진보적인
개인성 성취의 영적 목표까지도 드러낸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하여 변화하는 미(未)개인적 관계들과 진화하는
개인적 관계들이 있는 살아있는 우주에 대한 변화하지
않는 배경을 감지할 수 있는 합일이라는 개념이다.

133:5.9 (1477.4) 물질과 영 그리고 그들 사이에 개재하고 있는
상태는, 실제 우주의 진정한 합일이 이루는 서로 관계되고

상호-연관된 세 가지 차원들이다. 사실과 가치에 대한 우주 현상이 얼마나 갈라져 있는가에 상관없이, 그들은 어찌되었건, 최극자 안에 통합되어 있다.

133:5.10 (1477.5) 물질적 실존의 실체성은 눈에 보이는 사물들 뿐만 아니라 인식되지 않는 에너지에게도 부여된다. 우주의 에너지들이 속도가 매우 느려져서 필요한 운동 정도를 획득하면, 바로 이 에너지들은, 적합한 조건 속에서 질량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명백한 실체들의 현존을 단독으로 착상할 수 있는 마음 그 자체도 또한 실제라는 점을 잊지 마라. 그리고 에너지-질량, 마음 그리고 영의 이 우주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원한 것이다—그것은 우주 아버지와 그의 절대 조화-협동자들의 본성과 반응들 안에 존재하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다.

133:5.11 (1477.6) 그들 모두는 예수의 말들에 경탄하였고, 그 때 그리스인이 떠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인종적 우월성이나 종교와는 상관없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유대인을 마침내 만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아테네에서의 체류는 즐겁고 유익한 것이었으나, 인간들과의 접촉에 있어서는 그렇게 특별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그 당시의 아테네인들 거의 대부분은 자기들의 과거 명성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시절에 그리스가 영광을 누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지혜가 있었던 때에 살았던 열등한 노예들의 저들 후손들, 정신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에 대하여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테네의 시민들 가운데에서는, 많은 명민한 통찰력의 마음들이 여전히 발견될 수 있었다.

제 6 장. 에베소에서—혼에 대한 강론

아테네를 떠난 그 여행자들은 트로아를 경유하여 아시아 지방에서 로마의 수도 역할을 하는 에베소로 갔다. 그들은 도시에서 2마일 가량 떨어져 있는 에베소인들의 유명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아르테미스는 소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여신(女神)이었으며, 그것은 고대 아나톨리안에서의 아주 초기 시대의 어머니 여신을 이제껏 영속한 것이었다. 그 여신을 경배하기 위해 바쳐진 거대한 사원에는 조잡한 우상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가니드는 신성(神性)의 상징으로 형상을 존중하도록 일찍이 배웠던 것들 전부를 버리지는 못하고 있었으며, 소아시아의 이 다산(多産)의 여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은으로 만들어진 작은 성물함(聖物函)을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 날 밤에,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133:6.2 (1478.1)} 그곳에 머물던 셋째 날에, 그들은 항만 입구를 준설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하여 강을 따라 걸어 내려갔다. 점심 때,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매우 낙심되어 있는 한 젊은 페니키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을 넘어 그 위로 승진했던 어떤 젊은이를 시기하고 있었다. 예수는 그에게 위로하는 말을 해주면서, 히브리의 오래 된 속담을 인용하였다: “사람의 재능이 그를 위해 길을 넓게 하며 그리고 그를 존귀한 자의 앞으로 데려다 준다.”

^{133:6.3 (1478.2)} 그들이 지중해를 여행하는 동안 방문했던 모든 큰 도시들 중에서, 이곳에서 그들은 뒤이어 일어나는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의 일에 대해 가장 적은 가치를

성취했다. 그리스도교가 에베소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대체적으로 바울의 노력을 통해서였으며, 그는 이곳에서 2년 이상을 살았는데, 생계를 위하여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티라누스 학파가 대부분이었던 청중들에게 종교와 철학에 관한 강의를 매일 밤 수행하였다.

133:6.4 (1478.3) 이 지역의 철학 학교와 깊은 관련이 있는 한 진보적인 사상가가 있었는데, 예수는 그와 몇 차례의 유익한 회합을 가졌다. 이 토의를 통하여 예수는 "혼"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이 박식한 그리스인은 마침내 예수에게 그가 사용하는 "혼"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었으며,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133:6.5 (1478.4) "혼은, 자아-반영적이고, 진리를-식별하고, 영을-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한 부분으로서, 그것은 인간 존재를 동물 세계의 차원을 넘어서 언제까지나 높이 올려주고 있는 것이다. 자아-의식은, 의식하는 것 그리고 의식 자체는, 혼이 아니다. 도덕적 자아-의식이 참된 인간 자아-실현이며 인간 혼의 기초를 이루고 있고, 혼은 인간

체험에서의 잠재적인 생존의 가치를 대표하는 사람의 부분이다. 도덕적 선택과 영적 달성, 하느님을 알리는 능력과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 충동은 혼의 특징들이다. 사람의 혼은 도덕적 사고와 영적 활동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괴어있는 혼은 죽어 가는 혼이다. 그러나 사람의 혼은 마음 속에 내주하고 있는 신성한 영과 뚜렷하게 다르다. 신성한 영은 인간 마음의 첫 번째 도덕적 활동과 동시에 도착하며, 그것이 혼이 탄생되는 계기이다.

133:6.6 (1478.5) "혼이 구원되거나 또는 잃게 된다는 것은, 도덕적 의식이 그에 연관된 불멸하는 영적 자질과의 영원한 결합을 통하여, 생존적 지위를 달성하였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구원은 도덕적 의식의 자아-실현에서의 영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생존의 가치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혼의 갈등은, 도덕적이거나 혹은 영적인, 자아-의식과 그리고 순수하게 지적인 자아-의식 사이의 조화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133:6.7 (1478.6) "인간의 혼은, 성숙되고 고상해지고 영성화 되었을 때,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물질적 자아와 신성한 영 사이에 개재 되어가는 하나의 실존개체로 존재하려고

가까이 오고, 그로서 하늘의 지위로 다가가는 것이다. 인간 존재의 진화하는 혼은, 묘사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실증하기란 더욱 힘들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질적 조사나 혹은 영적 증명의 방법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질적 과학은 혼의 실존을 현시할 수 없으며, 순수한 영-실험도 그럴 수 없다. 물질적 과학과 영적 기준 모두가 인간 혼의 실존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의식을 가진 모든 필사자는 자신의 혼의 실존을 하나의 실재적이고 사실적인 개인적 체험으로서 알고 있다.”

제 7 장. 키프러스에서의 체류—마음에 관한 강연

133:7.1 (1479.1) 그 여행자들은 로드에서 잠시 머무르다가 키프러스를 향하여 항해하였다. 그들은 긴 해상여행을 즐겼으며, 육신과 영의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그들의 목적지인 그 섬에 도착하였

133:7.2 (1479.2) 그들의 지중해 여행이 거의 끝 무렵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키프러스 방문에서는 실제 휴식을 취하고 즐기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다. 그들은 바보스에 상륙하였으며, 가까운 산에서 몇 주간을 지내기 위한

생필품들을 즉시 모으기 시작하였다. 도착한 지 3일 만에 그들은 물건을 동물들에게 싣고 산을 향해 떠났다.

133:7.3 (1479.3) 두 주일 동안 이 세 사람들은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갑작스럽게도 어린 가니드가 몹시 앓게 되었다. 두 주일 동안 그는 심한 열로 고생을 하였고, 가끔씩 헛소리도 하였다; 예수와 고노드는 병자를 간호하느라 바빴다. 예수는 능숙하고 부드럽게 그 소년을 돌보았는데, 그 아버지는 고통 받는 소년을 돌보는 모든 일에서 현시된 예수의 자상함과 능숙함 모두에 의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있었고, 게다가 그 소년의 병은 너무 심해서 옮길 수도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 산 속에서 소년이 회복하도록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 할 뿐이었다.

133:7.4 (1479.4) 가니드가 회복하고 있던 3주 동안, 예수는 그에게 자연과 자연의 여러 가지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 주었다. 그리고 산을 배회하면서 그들이 즐겼던 것은, 그 소년이 질문을 하고 예수가 대답을 하는 것이었고, 그 소년의 아버지는 이 모든 일에 감탄하였다.

133:7.5 (1479.5) 그 산에서 머물렀던 마지막 주간에, 예수와 가니드는 인간 마음의 작용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다. 여러 시간 동안의 토의 끝에 그 소년은 이렇게 질문하였다: "그렇지만, 선생님, 사람이 고등동물들보다 더 높은 자아-의식의 형태를 체험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대답을 현대 용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았다:

133:7.6 (1479.6) 아이야, 사람의 마음과 그 안에 거하는 신성한 영에 대하여 나는 이미 많은 이야기를 네게 해주었지만, 지금은 자아-의식이 하나의 실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어떤 동물이 자아-의식을 갖게 되면, 하나의 원시인으로 된다. 그러한 달성은 미(未)개인적 에너지와 영-이해하는 마음 사이의 조화-협동적인 작용의 결과이며, 이러한 현상은, 인간 개인성을 위한 하나의 절대적 초점(焦點),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증여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133:7.7 (1479.7) 관념들은 감각한 것들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 아니며; 관념들이란 감각한 것들 위에 개인 자아의 반영적 해석을 덧붙인 것이다; 그 자아는 그가 감각한 것들의 전체

합계보다 큰 것이다. 진화하는 자아신분 안에서의 합일로 접근하는 그 무엇인가가 시작되고, 그 합일은 자아-의식적인 동물-기원 마음을 영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절대 합일의 일부분인 내주하는 현존으로부터 도래한다.

133:7.8 (1479.8) 동물에 불과한 존재들은 어떤 것도, 시간에 대한 자아-의식을 소유할 수 없다. 동물들은 관계적-연합된 감각-인식과 그것을 기억하는 생리학적 조화-협동 체계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감각에 대한 의미 있는 인식을 체험한다거나 혹은 지능적이고 반영적인 인간의 해석들이 내리는 결론 속에 현시되는 것과 같은 통합된 육체적인 체험들의 의도적인 관계적-연합을 나타내는 경우는 전혀 없다. 자아-의식이 실존한다는 이러한 사실은, 그 뒤에 일어나는 자신의 영적 체험에 대한 실체성과 연관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우주의 잠재적인 아들이 되게 하고 결국에는 그가 우주의 최극 합일을 달성하게 됨을 예시한다.

133:7.9 (1480.1)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아는 단지 의식의 연속 상태들에 대한 합계도 아니다. 의식 분류자와 관계적-연합자의 효력적인 기능 없이는, 자아신분이라는 명칭을

정당화시킬만한 충분한 합일이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통합되지 않은 마음은, 인간 지위의 의식적 차원들을 거의 달성할 수 없다. 만일 의식의 관계적-연합들이 단지 우연에 불과하였다면, 모든 사람의 마음들은 통제되지 못하고 되는대로 움직이는 정신적 광란 현상과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133:7.10 (1480.2) 오로지 물리적 감각에서의 의식으로 만들어진, 인간 마음은 영적 차원들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 이런 물리적 마음 종류는 도덕적 가치에 대한 감각이 철저하게 부족하며, 시간 안에서 조화로운 개인성 합일을 성취하는데 너무나 필수적이고. 그리고 영원 안에서 생존한 개인성과 떼어낼 수 없는, 그러한 영적 권역의 안내하는 감각이 없게 된다.

133:7.11 (1480.3) 인간 마음은 초물질적인 본질특성들을 일찍부터 현시하기 시작한다; 참되게 반영적인 인간 지성은 온통 시간의 한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일생의 행위에 있어서 그토록 서로 다른 저들 개별존재들은, 유전형질에서의 다양한 자질들과 그리고 환경에 대한 서로 다른 영향뿐 아니라, 자아에 의해 성취되고 있는

아버지의 내주 하는 영과의 통일 정도, 하나와 다른 하나간의 정체화구현에서의 척도 또한, 보여주는 것이다.

133:7.12 (1480.4) 인간 마음은 이중으로 충성하는 모순을 잘 견디지 못한다. 선과 악 모두를 섬기려고 애쓰는 체험은 혼에게 심각한 부담을 안겨 준다. 최극으로 행복하고 효과적으로 통합된 마음이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전심으로 봉헌된 마음이다. 해결되지 않은 모순들은 합일을 파괴시키며 마음이 분열되면서 종료될지 모른다. 그러나 혼의 생존되는 성격은,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는 시도나, 고귀한 포부를 포기하거나, 또는 영적 이상에서의 화합에 의해서 육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평화는 참된 것이 승리하기를 곳곳하게 주장함으로써 달성되며, 이 승리는 선(善)에서의 강력한 기세로 악(惡)을 극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33:7.13 (1480.5) 다음 날 그들은 살라미스를 향해 떠났고, 그곳에서 그들은 시리아 해변에 있는 안디옥으로 출항하였다.

제 8 장. 안디옥에서

133:8.1 (1480.6)

안디옥은 시리아 지방에서 로마의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였고, 이곳에는 그 제국의 총독공관이 있었다. 안디옥은 오십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였으며; 그 크기로는 제국에서 세 번째였고, 사악함과 부도덕적인 악명으로는 첫 번째였다. 고노드가 상당히 많은 사업상의 거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와 가니드는 많은 시간을 둘이서만 보냈다. 그들은 다프니의 작은 숲을 제외하고, 여러 나라의 말들을 사용하는 이 도시의 모든 곳을 둘러보았다. 고노드와 가니드는 악명 높은 이 치욕의 신전을 방문하였지만, 예수는 그들과 함께 가기를 사양하였다. 그러한 광경은, 이 두 인도인들에게는 충격을 주지 않았지만, 이상주의적 히브리인에게는 불쾌한 것들이었다.

133:8.2 (1480.7)

예수는 자기들의 여행이 끝나게 되고 팔레스타인에 가까이 이를수록, 더 냉정해지고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그는 안디옥에서는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다; 또한 도시도 거의 돌아보지 않았다. 자기 선생님에게 왜 안디옥에 그렇게 적은 관심을 현시했는지 많은 질문을 한 끝에, 가니드는 결국 예수로부터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듣게 되었다: “이 도시는 팔레스타인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다; 언젠가는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133:8.3 (1481.1)} 가니드는 안디옥에서 매우 재미있는 체험을 하였다. 이 젊은이는 이해가 빠른 학생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이미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안디옥에서 그의 아버지의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었던 한 인도인이 있었는데, 그가 너무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불평까지 심해서, 그를 해고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 가니드가 이 소식을 듣자, 그는 아버지의 사업장으로 가서 자신의 동족인 그 사람과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적당치 않은 자리에 배치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가니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대해서 이야기해주었으며, 여러 방면으로 그의 종교적 견해를 넓혀 주었다. 그러나 가니드가 말했던 모든 것들 중에서 유대 속담의 인용이 그에게 가장 효력이 있었는데, 그 지혜의 말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네 손에 맡겨진 무슨 일이든지, 온 힘을 다하여 일하라.”

^{133:8.4 (1481.2)} 그들은 카라반 낙타에 짐을 준비시킨 후에, 시돈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다시 다마스커스를 지나, 3일

후에는 사막의 모래 벌판을 가로지르는 긴 여행에 들어 갈 준비를 마쳤다.

제 9 장. 메소포타미아에서

133:9.1 (1481.3) 사막을 가로지르는 카라반여행은, 이미 여행에 관록이 붙은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새로운 체험이 되지 못하였다. 가니드는 자신의 선생님이 20마리의 낙타에 짐을 싣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과, 그들 자신의 짐승들을 손수 이끌고 갈 것을 자원하는 것을 보고,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는 단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의 눈에는 명예가 없는 선생이 있을 수 없다는 게 분명하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은 고대의 도시인 우르로 출발하였다.

133:9.2 (1481.4) 예수는 아브라함의 출생지인 우르의 초기 역사에 매우 관심을 보였으며, 수사의 옛 터전들과 전통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매료되었으므로, 고노드와 가니드는 예수가 그의 조사를 수행하는 데 좀 더 많은 시간을 잘 제공받을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예수를 자신들과 함께

인도로 돌아가기를 설복하는 데 기회를 좀 더 가지기 위하여, 그곳에서 3주간을 더 머물렀다.

133:9.3 (1481.5) 가니드가 지식, 지혜, 진리 사이의 차이점들에 대하여 예수와 긴 이야기를 나눈 것은 우르에서였다. 그는 히브리 현인(賢人)의 다음과 같은 말에 매우 매료되었다: “지혜가 기본적인 것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탐구한 모든 지식으로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 들 것이라. 만일 지혜를 품기만 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133:9.4 (1481.6) 마침내 이별의 날이 다가왔다. 그들은 모두 대담하였고, 특히 그 젊은이가 그러하였으나, 그것은 매우 힘들고 괴로운 체험이었다. 그들은 눈시울을 적시었으나 가슴에서의 용기를 가졌다. 가니드는 자기 선생에게 작별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안녕히 가십시오, 선생님,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다마스쿠스에 오면, 선생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선생님과 같으신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적어도 당신께서 제게 이야기해주신 그와 당신이 매우

닭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들을 기억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저는 선생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말하기를,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느님을 알도록 도움을 주신 위대한 선생님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대답하기를, “평화가 당신들 위에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축복이 항상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는 해변가에 서서, 정박하여 기다리고 있는 배 쪽으로, 작은 배가 그들을 태우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해서 주(主)는 인도에서 온 그의 친구들을 카락스에서 작별하였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들을 다시 만나지 못했으며; 그들은 나중에 나사렛의 예수로 나타난 그 사람이, 그들이 방금 작별을 한 동일한 이 친구—그들의 선생 여호수아—이었음을 이 세상에서는 결코 알지 못하였다.

133:9,5 (1481.7) 인도에서, 가니드는 성장하여 유능한 아버지의 훌륭한 계승자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며, 자기가 사랑하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많은 고귀한 진리들을 널리 전하였다. 가니드는 자기가 살아있던 훗날에,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에서 그의 생애를 끝낸 이상한

선생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아들의 복음과 자신의 유대인 선생님의 가르침에서 유사성을 발견하였지만, 이 두 사람이 실재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생각에 떠오르지 않았다.

133:9.6 (1482.1) 그렇게 해서, 사람의 아들의 일생에 있어서 여호수아 선생의 사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장(章)이 끝나게 되었다.

제 134 편 과도기 시절

134:0.1 (1483.1) 지중해 여행 동안, 예수는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과 거쳐 갔던 나라들에 관하여 주의 깊게 연구하였으며, 땅에서의 자신의 나머지 일생에 대하여 최종 결정에 도달한 것도 이 무렵의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부모에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참작한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였고 이제 그 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으며, 따라서 그는 진리를 가르치는 일반 대중을 위한 선생으로서의 필생의 사명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갈릴리로 돌아갔으며; 그는 자기 아버지인 요셉이 소속된 민족의

땅에서 공생애를 펼치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기 시작하였고,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것을 수행하였다.

134:0.2 (1483.2) 예수는, 이 세상에서의 자기 일생에 대한 마치는 장을 꾸미고 마지막 장면을 상연하기에, 전체 로마 세계 중에서 팔레스타인이 최상의 장소임을, 개인적 그리고 인간적 체험을 통하여 발견했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공개적으로 현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을 계시하는 계획에, 제일 먼저 충분히 만족하게 되었다. 그는 어떤 도움도 없는 아기로서 인간 체험에 들어갔던 동일한 장소에서, 땅에서의 자기 일생을 완결하고 필사자 실존으로서의 자신의 생애를 완성하기로 분명하게 결정하였다. 그의 유란시아 생애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일생을 팔레스타인 안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끝내기로 선택하였다.

제 1 장. 30살 되던 해 (서기 24년)

134:1.1 (1483.3) 카락스에서 고노드와 가니드를 떠나보낸 후에(서기23년 12월), 예수는 우르를 경유하여 바빌론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사막의 카라반과 합세하였다. 다마스커스로부터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도중에는, 단지 몇 시간 동안 가버나움에 들렀을 뿐이며, 그곳에서 세베대의 가족들을 만났다. 그 때 그는 동생 야고보를 만났으며, 야고보는 세베대의 배를 만드는 목공소에서 그를 대신하여 일하기 위해 얼마 전부터 와 있었다. 예수는 야고보와 유다(역시 우연히 가버나움에 왔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에, 요한 세베대가 자기를 대신하여 사 놓았던 작은 집을 동생 야고보에게 넘겨준 다음, 나사렛으로 갔다.

134:1,2 (1483,4) 지중해 여행을 마쳤을 때, 예수는 자신의 대중을 위한 사명활동을 시작할 때까지의 생활비를 충당할 만큼의 충분한 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버나움의 세베대와 이 특별한 여행 도중에 그가 만났던 사람들을 제외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가 이러한 여행을 했었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하였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냈었다고 항상 믿었다. 예수는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확인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또한 그러한 오해들을 드러내놓고 부정도 하지 않았다.

134:1.3 (1483.5) 나사렛에 머물던 몇 주간 동안, 예수는 가족과 친구들을 방문하거나 동생 요셉과 수리소에서 함께 있으면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관심을 마리아와 룯에게 쏟았다. 룯은 그 때 거의 15살이었는데, 그녀가 처녀가 된 이래로 예수가 그녀와 긴 대화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134:1.4 (1484.1) 시몬과 유다는 한 동안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예수의 동의 없이는 하고 싶지 않았다; 따라서 맏형이 돌아오리라는 희망으로 이들 사건을 미루어 오고 있었다. 비록 그들 모두가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야고보를 가장(家長)으로 여기고 있기는 하였지만, 막상 결혼이 임박해지자 예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시몬과 유다는 서기 24년 3월 초순에 두 쌍의 결혼식을 올렸다. 나이 든 아이들은 이제 모두 결혼하게 되었다; 가장 나이가 어린 룯만이 마리아와 함께 집에 남게 되었다.

134:1.5 (1484.2) 예수는 가족의 개별 구성원들과 만날 때에는 매우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태도를 취하였지만, 모두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거의 말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자기들끼리 그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특히
마리아는 자기 맏아들의 정상이 아닌 이상한 태도 때문에
우울하였다.

134:1.6 (1484.3) **예수가 나사렛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에,**
이 도시를 지나가던 큰 카라반의 지휘-안내자가 심한 병에
걸리게 되었고, 예수가 외국어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그의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자원하였다. 그는 이 여행으로
인하여 일 년 동안 집을 비워야 하였고, 동생들이 모두
결혼해서 집에는 어머니와 롯뿐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족회의를 소집하였고, 그 자리에서 그는 자기가 최근에
야고보에게 넘겨주었던 가버나움 집으로 어머니와 롯이
이사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예수가 카라반들과
떠나간 며칠 뒤에, 마리아와 롯은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였고, 그곳에서 그들은 마리아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예수가 제공한 집에서 살았다.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나사렛의 고향집으로 들어왔다.

134:1.7 (1484.4) **이 해는 사람의 아들의 내적 체험에 있어서 매우**
특이한 해들 중의 하나였으며; 그의 인간 마음과 내주하는
조절자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일에 굉장한

진보가 있었다. 그 당시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장래에 일어날 위대한 사건들을 위하여, 조절자는 예수의 생각을 재조직하고 마음을 훈련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예수의 개인성은 세상을 향한 자기 태도에 굉장한 변화를 일으킬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기간들은 양단의 중간 시기, 인간으로 나타난 하느님으로서의 일생을 시작하는, 하느님으로 나타난 사람으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생애를 완성시키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도기 단계였다.

제 2 장. 카스피 지역을 향한 대상 여행

^{134:2.1 (1484.5)} 예수가 나사렛을 출발하여 카라반들과 함께 카스피 해(海)로 여행을 떠난 것은 서기 24년 4월 1일의 일이었다. 예수가 지휘-안내자로서 합세하였던 그 카라반은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다마스쿠스와 우르미아 호수를 경유하고 아시리아, 메디아, 파르티아를 거쳐 남부 카스피 지역으로 갔다. 이 여행에서 그가 돌아오기까지는 꼬박 1년이 걸렸다.

^{134:2.2 (1484.6)} 예수에게 있어서 이 카라반여행은 탐험과 개인적 사명활동의 또 다른 모험이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카라반

일행들—승객들, 안내원들, 낙타부리는 자들—과 함께 재미있는 체험을 하였다. 카라반이 지나갔던 길을 따라 살고 있었던 많은 남녀 어른들과 아이들은, 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카라반을 이끄는 비범한 지휘-안내자로 보였던 예수와 접촉한 결과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가 개인적으로 사명활동하였던 이 기회들을 포착하였던 사람들 전부가 덕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더욱 좋은 여생(餘生)을 누렸다.

134:2.3 (1484.7) 그의 모든 여행 중에서 이 카스피 해의 여행은 예수로 하여금 동방에 가장 가깝게 가도록 하였으며, 그리하여 그가 극동(極東)지방 사람들을 좀 더 납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적색인종을 제외하고 유란시아에 살았던 모든 종족들과 친밀하고도 개인적 접촉을 가졌다. 그는 이러한 여러 다른 인종들은 물론 혼합된 인종들 각각에게 그의 개인적 사명활동을 똑같이 베풀었으며, 그들 모두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가져다 준, 살아있는 진리를 잘 받아들였다. 극서(極西)지방에서 온 유럽인들이나 극동지방에서 온 아시아인들은, 희망과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그의 말에 똑같이 주의를

기울였으며, 그들 가운데에서 그토록 우아하게 함께 살았던 사랑 넘치는 봉사와 영적 사명활동에 의하여 똑같이 영향을 받았다.

^{134:2.4 (1485.1)} 카라반 여행은 모든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이것은 예수의 인간 일생에서 매우 흥미 있는 에피소드였는데, 왜냐하면, 그는 이 해 동안에 자기에게 맡겨진 물질에 대하여, 그리고 카라반 무리들을 이루고 있던 여행자들의 안전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맡은 관리자 자격으로 기능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신실하게, 능률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자신의 복합적인 의무들을 잘 이행하였다.

^{134:2.5 (1485.2)} 카스피 지역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수는 우르미아 호수에서 카라반 지도자의 자리를 사직하고 2주가 약간 넘는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그는 나중에 다마스커스로 가는 카라반 대열에 승객으로 합세하여 같이 갔는데, 그곳에서 그 낙타들의 주인은 그에게 그들의 봉사에 남을 것을 제의하였다. 그는 이 요청을 거절하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카라반들과 함께 여행하여 서기 25년 4월 1일 가버나움에 도착했다. 그는 더 이상 나사렛을 자기

고향으로 여기지 않았다. 가버나움에 예수와 야고보와 마리아와 룻의 고향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는 다시는 자기 가족과 함께 살지 않았다;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는 세베대의 집을 자기 집으로 삼았다.

제 3 장. 우르미아에서의 강연

134:3.1 (1485.3) 카스피 해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수는 휴식과 원기회복을 취하기 위하여 우르미아 호수의 서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페르시아 도시인 우르미아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 우르미아 근처 해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섬들 중에서 가장 큰 섬 위에 하나의 큰 건물—원형극장식의 강연 장소—가 “종교의 영”에게 바치어져 있었다. 실제로 이 건물은 종교 철학을 다루는 사원(寺院)이었다.

134:3.2 (1485.4) 이 종교 사원은 우르미아의 시민인 부유한 상인과 그의 세 아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심보이톤이었으며, 그의 조상들 중에는 다른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었다.

134:3.3 (1485.5) 이 종교학교의 강의들과 토의들은 주 중에 매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였다. 오후 강의들은 3시에

시작하였으며, 저녁 토론회는 8시에 열렸다. 심보이톤 또는 그의 세 아들들 중의 하나가 이러한 강의나 토의나 토론들의 사회를 항상 맡았다. 이렇게 독특한 종교 학교를 설립한 그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을 결코 나타내 보이지 않은 채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134:3.4 (1485.6) 예수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 토론회에 참여하였고, 그가 우르미아를 떠나기 전에, 심보이톤은 예수로 하여금 돌아가는 길에 그들과 2주간 동안 머물러 있도록 조치하였고, "사람들의 형제신분"라는 주제로 24번의 강의를 하게 하였으며, 그리고 특히 그의 강의에 대하여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형제신분에 관한 질문과 토의 그리고 토론을 하는 12번의 저녁 강의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였다.

134:3.5 (1485.7) 이러한 예정에 따라 예수는 돌아가는 길에 우르미아에 들러 계획된 강의들을 하였다. 이것은 유란시아에서 있었던 예수의 모든 가르침들 중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형식을 갖춘 것이었다. 사람들의 형제신분에 대하여, 이 강의들과 토의들에서처럼, 그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실제 안에서

이러한 강의들은 “하느님의 왕국”과 “사람들의 왕국들”에 관한 것이었다.

134:3.6 (1486.1) 30개가 넘는 종교들과 종교적 예배종파들이 종교들의 철학을 위한 이 사원에서의 교수진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 선생들은 그들 각자의 종교적 집단들에 의해 뽑혔고, 지원을 받았으며, 충분히 인정을 받았다. 이 무렵에는 75명의 선생들이 교수진으로 활동하였고, 그들은 각 집마다 12명이 함께 사는 사택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 집단들의 구성원은 새로 달이 바뀔 때마다 제비뽑기에 의해 바뀌었다. 편협함, 논쟁적인 영, 또는 집단을 순조롭게 운영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다른 어떤 기질이든지 나타나는 경우에는 위반한 선생으로서 그 즉시 즉각적으로 해직되었다. 그 사람은 아무런 예식을 거치지 않고 해직되었고, 기다리고 있던 그의 대체자가 곧 그의 자리를 임명되었다.

134:3.7 (1486.2) 여러 종류의 종교들을 대표한 이러한 선생들은 이 일생과 다음 일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각자의 종교들이 서로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교수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원칙만이 적용되었다—각 선생은 하느님—어느 정도 최극 신(神)을 포함하는—을 인정하는 종교를 대표해야만 하였다. 교수진 가운데에는 어떤 조직화된 종교도 대표하지 않는 독립된 5명의 선생들이 있었는데, 예수는 그러한 독립된 선생으로 그들 앞에 서게 되었다.

134:3.8 (1486.3) [우리 중도자들이 우르미아에서의 예수의 가르침들의 요지를 처음으로 준비하였을 때, 유란시아 계시에 이러한 가르침들을 포함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지에 대하여 교회의 세라핌천사와 진보의 세라핌천사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았다. 20세기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종교와 인간 정부들의 상황이 예수 당시에 퍼져있었던 그러한 상황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느님의 왕국과 사람의 왕국들에 관한 우르미아에서의 예수의 가르침을 20세기에 실존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의 기능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는 이들 행성정부의 이들 두 세라핌천사 집단 모두에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서술문(敍述文)을 결코 만들어 낼 수 없었다. 마침내, 계시위원회의 멜기세덱 의장(議長)이 우리들 전체 인원 중에서 임명된 세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게 20세기

유란시아의 종교적, 정치적 상황에 맞도록 우르미아에서의 예수의 가르침들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따라서 우리 2차 중도자 세 명은 그렇게 예수의 가르침이 합당해 지도록 완성하였고, 그의 선언을 우리가 지금-현재의 세계 조건에 적용해 보려는 바에 따라 다시 진술했으며, 이후 계시위원회의 멜기세덱 의장의 편집을 받은 그대로 지금, 이들 서술문을 발표한다.]

제 4 장. 주권—신성한 것과 인간의 것

134:4.1 (1486.4) 사람의 형제신분은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에 기초를 둔다. 하느님의 가족은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된다—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아버지 하느님은 그의 자녀들 모두를 신성하게 사랑한다.

134:4.2 (1486.5) 하늘의 왕국, 신성한 정부는 신성한 주권—하느님은 영(靈)이시다—의 사실에 기초를 둔다. 하느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왕국은 영적(靈的)이다. 하늘의 왕국은 물질적도 아니고 또한 단순히 지적인 것도 아니다; 하느님과 사람사이의 영적 관계이다.

134:4.3 (1486.6) 만약 다른 종교들이 아버지 하느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모든 종교들은 평화를 누리게 된다. 오직 하나의 종교가 어떤 면에서 다른 모든 종교들보다 우월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다른 종교들에 비하여 전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면, 그러한 하나의 종교가 다른 종교들을 용납하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들의 신자들을 겁 없이 박해하게 될 것이다.

134:4.4 (1487.1) 종교적인 평화—형제신분—는 모든 종교들이 교단의 모든 권한을 자진해서 완벽하게 버리고 또한 영적 통치권에 대한 모든 관념을 전부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존재할 수 없다. 하느님 한 분만이 영적 통치자이시다.

134:4.5 (1487.2) 모든 종교들이 모든 종교적 주권(主權)을 초인간적인 하느님 자신에게 맡기기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종교적 전쟁 없이 종교들 사이에 평등(종교적 해방)을 유지할 수 없다.

134:4.6 (1487.3) 사람들의 가슴속에 있는 하늘의 왕국은 종교적 화합(반드시 획일적일 필요는 없지만)을 창조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러한 종교적 신자들로 구성된 모든

종교는 성직의 권한—종교적 주권—에 대한 모든 개념에서 해방될 것이기 때문이다.

134:4.7 (1487.4) 하느님은 영이시며, 하느님은 자신의 영 그 자체의 한 단편을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게 한다. 영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하늘의 왕국은 신분이나 특권계급이나 사회 차원이나 경제 집단들로부터 자유롭다.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134:4.8 (1487.5) 그러나 너희가 하느님 아버지의 영적 주권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떤 하나의 종교가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우월성을 주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대신, 종교인들 사이에서 불화와 비난이 시작될 것이고 심지어는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134:4.9 (1487.6) 스스로를 동등하다고 간주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은, 그들 위에 그들을 넘어서는 어떤 초(超)주권, 어떤 권한에 종속된 것으로 스스로를 서로 인정하지 않는 한, 조만간에 다른 사람들과 집단들을 지배하기 위한 힘과 권한을 갖기 위하여 자신들의 힘을 시험해 보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 초(超)주권의 어떤 전반적-통제의

영향력을 서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평등의 개념이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134:4.10 (1487.7) 우르미아 종교인들은 종교적 주권에 대한 자신들의 모든 신념들을 전부 다 내 던졌기 때문에, 비교적 평화스럽고 고요하게 함께 살아갔다. 영적으로는, 그들 모두가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느님을 믿었다; 사회적으로는, 충만하고 도전할 수 없는 권한을 그들의 주관하는 우두머리—심보이톤—에게 맡겼다. 그들 모두는, 동료 선생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지를 잘 알고 있었다. 하늘이 내린 편애(偏愛)와 선택된 백성 그리고 종교적 주권에 대한 자신들의 신념을 모든 종교적 집단들이 자유의지로 포기하기 전에는, 영구한 종교적 평화를 유란시아에서 기대할 수 없다. 오직 아버지 하느님이 최극의 뜻이 될 때에만, 사람들은 종교적 형제들이 되고 이 세상에서 종교적인 평화 속에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제 5 장. 정치적 주권

[하느님의 주권에 관한 주(主)의 가르침이 진리인—오직 그 후에 세상 종교들 중의 하나로 출현된 그에 관한 종교로 인하여 복잡해졌을 뿐임— 반면에, 정치적 주권에 관하여 그가 제시한 것들은 지난 1,90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국가 살림살이의 정치적 진화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복잡하여졌다. 예수의 시절에는 단지 두 개의 세계적인 강국들—서방의 로마제국과 동방의 한 제국—이 있었고, 이 두 제국은 파르티아 왕국과 카스피 그리고 투루키스탄 지역의 땅들이 사이에 있음으로써 매우 멀리 분리되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에 소개되는 내용들 속에서는 정치적 주권에 관한 우르미아에서의 주(主)의 가르침의 요지와는 많이 동떨어지게 되기는 하였지만, 그리스도 이후 20세기에 있어서 정치적 주권의 진화에 따른 특별히 결정적인 단계에 그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가르침의 의미를 서술해 보려고 동시에 시도하였다.]

국가들이 무제한적 국가 주권에 대한 환상적인 생각에 집착하는 한, 유란시아에서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거주하는 세계에는 단지 두 가지 차원의 상대적 주권만이 있다: 개별 필사자의 영적 자유의지와

전체로서의 인류의 집합적 주권이다. 개별 인간 존재의 차원과 인류 전체의 차원 사이에서는, 집단을 이루는 것과 관계적-연합을 이루는 것, 모두는 상대적이고 일시적이며 오직 그들이—사람과 인류—개별존재와 행성의 총합된 복지와 안녕 그리고 진보를 향상(向上)시키는 경우에만 가치가 있다.

134:5.3 (1488.1) 종교 교사들은, 하느님의 영적 주권이 중재를 이루고 그리고 중개 역할을 하는 모든 영적 충성심에 우선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한다. 시민 정부의 통치자들은, 사람의 왕국들을 통치하는 지고자들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134:5.4 (1488.2) 사람들의 왕국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고자들의 이 통치는, 특별하게 혜택을 받는 어떤 사람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고자들, 정치적 진화의 전반적-통제자들의 통치는 가장 긴 세월 동안 가장 많은 숫자의 모든 사람들에게 최상의 유익을 주도록 설계된 하나의 법칙이다.

134:5.5 (1488.3) 주권(主權)은 힘이며 그것은 조직에 의하여 자라난다. 이러한 정치적 힘의 조직들의 성장은 유익하고 바람직한데, 왜냐하면 그것은 인류 전체의 가장 넓은 부분들을 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정치적 조직들의 성장은, 초기의 자연스러운 정치적 힘—가족(家族)—의 조직과 최종적인 정치적 성장의 달성—모든 인류의, 모든 인류에 의한, 모든 인류를 위한—사이에 있는 모든 중간 단계마다 문제를 만들어낸다.

134:5.6 (1488.4) 가족 집단 속에 있는 부모의 힘으로부터 출발하여, 정치적 주권은 진보를 이루어 가족들 간의 혈연관계인 씨족으로 뭉쳐지고, 그것들은 다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부족(部族) 단위들—혈연관계를 초월한 정치적 집단들—로 연합된다. 그런 다음에는, 무역과 상업 그리고 정복의 수단을 통하여 종족들이 하나의 국가로 연관되고, 국가들은 때때로 제국으로 연관되어지기도 한다.

134:5.7 (1488.5) 주권이 소규모의 집단에서 대규모의 집단들로 옮겨져 가면서, 전쟁은 점점 줄어든다. 작은 국가들 간의

작은 전쟁들이 줄어드는 반면, 그 국가들이 휘두르는 주권이 점점 더 커갈수록 더 큰 전쟁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윽고, 모든 세상이 탐험되어지고 차지되면, 국가들의 수가 몇 개 되지 않으면서 강하고 힘이 있게 되면, 이러한 엄청난 주권을 소유한 나라들의 국경이 서로 이웃하게 되면, 단지 바다만이 그들을 나누어 놓게 되면, 그 때 세계적인 투쟁인 큰 전쟁이 일어날 무대가 꾸며질 것이다. 소위 주권을 가진 국가들은,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서로 사귄 수 없기 때문이다.

134:5.8 (1488.6) 가족으로부터 전체 인류로 확대되는 정치적 주권의 진화 속에서 겪는 어려움은, 중간에 게재하는 모든 차원에서 나타나는 끈질긴-저항 안에 들어있다. 가족들은 경우에 따라 자기들의 씨족에게 도전해 왔으며, 반면에 씨족들과 부족들은 지역 국가의 주권을 종종 타도하였다. 각각의 새롭고 진취적인 정치적 주권의 진화는, 정치적 조직 속에서 전에 있었던 발전들의 "발판이 되는 단계들"에 의해 난처한 지경에 처하고 방해받는다(그리고 항상 그래 왔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 이유는, 인간 총성은 한번 발동이 걸리면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부족의 진화를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충성이 종족을 초월한—지역적 국가— 진화를 어렵게 한다. 그리고 지역적 주정부의 진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동일한 충성심(애국심)이 모든 인류의 정부의 진화적인 발전을 매우 복잡하게 만든다.

134:5.9 (1488.7) 정치적 주권은 먼저 가족 안에서 개별존재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족과 더 큰 집단들과의 관계에서 가족과 씨족들이, 자아-결정주의에서의 포기로부터 창출된다. 자아-결정주의가 소규모에서 좀 더 큰 정치적 집단으로 옮겨간 이러한 진보적인 양도는 동방에서는, 명 왕조와 몽고 왕조가 설립된 이후로 대체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진행되었다. 서방에서는 세계 대전 말까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것이 진행되었는데, 그 후에는 유럽의 수많은 작은 집단들이 침몰되었던 정치적 주권을 재정립함으로써 정상적인 이 경향이 불행스런 역행 운동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거꾸로 되었다.

134:5.10 (1489.1) 유란시아는, 소위 말하는 주권 국가들이 지능적이고 전적으로 자신들의 주권의 힘을 사람의 형제신분—인류의 정부—에게 양도하기 전까지는,

지속되는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국제주의—국가들의 연맹—은 인류에게 영원한 평화를 결코 가져올 수 없다. 국가들의 세계적인 연관은 소규모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작은 나라들을 통제하게 되겠지만, 그들은 세계전쟁들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개, 4개, 또는 5개의 초강대국들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적인 갈등에 직면하게 되면, 이 세계적인 강국들 중의 하나가 연맹에서 탈퇴하여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국가적 주권이라는 망상적 병균에 감염되어 있는 동안에는, 국가들 간의 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없다. 국제주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국제경찰의 기세는 많은 작은 전쟁들을 미리 방지하게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정부들 사이의 갈등인 큰 전쟁을 막는 것에는 그렇게 큰 효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134:5.11 (1489.2) 진정한 주권을 갖는 국가들(강대국)의 숫자가 줄어 들어감에 따라, 인류 전체의 정부에 대한 기회와 필요성이 증가한다. 단지 소수의 (거대한) 강대국들만이 실제로 주권을 행사할 때, 그들은 국가(제국)의 최극위를 위하여 사생결단(死生決斷)의 투쟁을 선포해야만 하던가,

아니면 주권에서의 일정 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온 인류에 대한 실제 주권의 시작으로 작용될 초국가적인 세력의 본질적인 토대를 창립하여야만 한다.

134:5.12 (1489.3) 소위 말하는 주권 국가들 모두가 전쟁을 일으키는 그들의 세력을 온 인류의 대표 정부에게 양보하기 전까지는 유란시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주권은 세상의 국민들과 함께 태생적이다. 유란시아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의 세계 정부를 창조하였을 때, 그들은 그러한 정부로 하여금 주권을 갖도록 만들 수 있는 권리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대표적 또는 민주적 세계 힘이 세상의 육지, 공중 그리고 해상의 군사력을 통제하는 그러한 때는,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선한 뜻이 만연할 것이다—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니다.

134:5.13 (1489.4) 19세기 와 20세기의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48개 주로 구성된 아메리카 연방은 오랫동안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의 전쟁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권을

연방정부에게 양도하였으며, 전쟁을 중재함으로써 자아-결정권이라는 망상을 모두 포기하였다. 각 주(州)정부는 자체적인 내부의 관련사들을 규제하는 반면, 외국과의 관계, 세관, 이민, 군사 관련사, 주정부 간의 통상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들은 시민권의 문제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연방정부의 주권이 어떤 문제로든지 위태롭게 되었을 경우에만, 그 48개의 주들은 전쟁으로 인한 참화(慘禍)를 겪게 된다.

134:5.14 (1489.5) 주권과 자아-결정권이라는 두 개의 궤변들을 포기한, 이 48개의 주(州)들은 주들 간의 평화와 평정을 누린다. 그와 같이 유란시아의 국가들도 그들 각자의 주권들을 범세계적인 정부—사람들의 형제애의 주권—의 손에 양도할 때, 그러한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세계국가 안에서는 작은 나라들도 큰 나라만큼 힘을 갖게 되는데, 마치 작은 로드아일랜드 주가 인구 많은 뉴욕 주나 혹은 가장 큰 텍사스 주와 마찬가지로 미국 국회에 두 명의 상원의원을 보내는 것과 같다.

134:5.15 (1490.1) 이러한 48개 주들의 한정된 (주정부의) 주권은 사람들에게 의해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주를

관할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적) 주권은 원조(元祖)가 되는 13개의 주에 의해 그들 자신의 이익과 주민(州民)들의 이익을 위하여 세워졌다. 언젠가는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초국가적인 인류의 행성 정부가 비슷한 형태로 세워질 것이다.

134:5.16 (1490.2) 시민들은 정부의 이익을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며; 정부들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고안되어진 것이다. 모든 사람의 주권 정부가 나타날 때까지는, 정치적 주권의 진화에 끝이 있을 수 없다. 모든 다른 주권들은 가치에 있어서 상대적이고, 의미에 있어서 중간적이고, 지위에 있어서는 종속적이다.

134:5.17 (1490.3) 과학의 발달과 함께, 전쟁은 그들이 거의 인종적 자살 행위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잔인하게 되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인류 전체의 정부를 세우고 영원한 평화를 즐기면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의 선한 뜻—전-세계적 선한 뜻—에 의한 평정을 토대로 번영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계 전쟁들을 치러야 하고, 얼마나 많은 국가 동맹들이 깨어져야만 할 것인가?

제 6 장. 법, 자유, 주권

134:6.1 (1490.4) 만약에 한 사람이 자유—해방—를 열망한다면, 그는 모든 다른 사람들도 역시 자기와 똑같은 자유를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해방을-사랑하는 그러한 필사자들의 집단들은, 각 사람에게 같은 정도의 자유를 허락해 주고 동시에 그의 동료 필사자들 모두에게도 같은 양의 자유를 보장해줄, 법과 규칙 그리고 규정들을 지키지 않고서는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없다. 만약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지려면, 다른 사람은 절대적인 노예가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자유의 상대적인 속성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참된 사실이다. 자유는 법을 집행함으로써 성취 가능한 문명의 선물이다.

134:6.2 (1490.5) 종교는 사람들이 형제애를 실현하는 것을 영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주지만, 인간의 행복이나 효율성에 관계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문제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인류 전체의 정부를 필요로 한다.

134:6.3 (1490.6) 세상의 정치적 주권이 나뉘어 있고 옳지 않게 국가-주정부의 어느 한 집단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는 한,

전쟁들과 전쟁들에 대한 소문들—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반목하는—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는 그들이 각자의 주권을 영국 연방에게 위임하기 전까지 항상 서로 싸워왔다.

134:6.4 (1490.7) 또 다른 세계전쟁을 체험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주권 국가들이 어떤 종류의 연관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해서 작은 전쟁, 약소국가들 사이의 전쟁들을 예방하는 기구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전쟁은 인류 전체의 정부가 생길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지구 전체의 통제권이 세계적인 전쟁들을 막게 될 것이다—다른 아무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

134:6.5 (1490.8) 48개의 미국의 독립된 주들은 평화를 유지하면서 함께 살고 있다. 이들 48개 주들의 시민들 중에는, 항상 전쟁에 시달리는 유럽의 국가들에 살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국적과 인종들도 섞여 있다. 이 미국인들은 전 세계 모든 종교들과 종교적 예배종파들을 대표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북미(北美) 지역에서 평화스럽게 함께 살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은, 이

48개 주들이 그들의 주권을 포기하였고 자아-결정권을 갖는 권리들에 대한 모든 개념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하다.

134:6.6 (1490.9) 그것은 무장과 비무장의 문제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징집인가 혹은 자발적 군대 봉사인가 하는 것도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이들 문제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너희가 강대국들로부터 현대의 기계화된 무기들과 모든 유형의 폭탄들을 다 빼앗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국가적 주권의 신성한 권리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한, 그들은 주먹과 돌과 방망이를 가지고라도 싸울 것이다.

134:6.7 (1491.1) 전쟁이 사람의 가장 크고 끔찍한 병이 아니다; 전쟁은 증상, 그 결과이다. 실제 병은 국가적 주권이라는 병균이다.

134:6.8 (1491.2) 유란시아 국가들은 실제 주권을 소유해 보지 못하였다; 세계적 전쟁들의 참상과 황폐함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주권을 한 번도 가져 본 적이 없었다. 인류 전체의 범세계적 정부의 창조에서, 국가들은 주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재적이고 진실하며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후로는 모든 전쟁으로부터 자신들을 충분히 보호해 주는 줄 수 있는 세계 주권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관련사들은 지방정부에 의해; 국가적인 관련사들은 국가 정부에 의해 처리되어지고; 국제적인 관련사들은 범세계 정부에 의해서 관리-운영될 것이다.

^{134:6.9 (1491.3)} 세계평화는, 조약, 외교, 외교 정책, 연맹, 힘의 균등, 혹은 민족주의적 주권으로 속임수를 쓰는 어떤 다른 유형의 미봉책으로도 유지될 수 없다. 세계에 통용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세계정부—모든 인류의 주권—에 의해 강화되어야만 한다.

^{134:6.10 (1491.4)} 개별존재들은 세계정부 아래에서 훨씬 더 많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날, 강대국의 시민들은 거의 강제적으로 세금이 과세되고, 규제되고, 통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재의 개별적 해방에 대한 대부분의 간섭은, 국가정부가 기꺼이 국제적 관련사들에 관하여 그들의 주권을 범세계적 정부에게 맡겼을 때 사라질 것이다.

^{134:6.11 (1491.5)} 범세계적 정부 아래에서 국가적 집단들은 순수한 민주주의의 개인적 해방을 실현하고 즐길 수 있는 실제 기회를 잘 제공받게 될 것이다. 자아-결정에 대한 그릇된 생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돈과 무역에 대한 범세계적 차원의 규제에 의해서 세계적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곧 범세계적 언어가 생기게 될 것이며, 적어도 언젠가는 범세계적 종교—혹은 범세계적 차원의 견해를 가진 종교—를 가지게 된다는 희망이 어느 정도 생길 것이다.

134:6.12 (1491.6) 집단적인 안전은, 그 집합체가 모든 인류를 포함하기 전까지는, 평화를 결코 잘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134:6.13 (1491.7) 인류를 대표하는 정부의 정치적 주권은 지구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며, 사람의 영적 형제신분은 모든 사람들 간의 친선을 언제까지나 보장할 것이다. 지상의 평화와 사람들 간의 선한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아무 것도 없다.

134:6.14 (1491.8) 심보이톤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들은 평화스러운 교수진을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만약 우르미아 교수진에 합세하였던 후대의 그리스도교 선생들이 좀 더 지혜로웠고 좀 더 참을성이 있었더라면, 예수의 가르침의 반향은 훨씬 더 컸을 것이다.

134:6.15 (1491.9) 심보이톤의 맏아들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브너에게 도움을 청하였지만, 아브너는 선생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고 그 선생들은 완고한 사람들이 되었고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이 선생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다른 신앙들을 지배하도록 만들려고 애썼다. 그들은 카라반의 지휘-안내자라고 불리는 사람의 강의가, 예수 자신이 강연했었던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하였다.

134:6.16 (1491.10) 교수진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자, 세 형제들은 그들의 경제적 지원을 끊었고, 5년 후에 그 학교는 문을 닫게 되었다. 나중에 그것은 미트라 사원으로 다시 문을 열었으나 결국에는 주신(酒神) 축제들을 벌이다가 불에 타버렸다.

제 7 장. 31살 되던 해 (서기 25년)

134:7.1 (1492.1) 예수가 카스피 해로 떠났던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그의 세계 여행이 거의 완결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다시 팔레스타인 밖으로 여행한 것은 한 번밖에 더 없었는데, 그것은 시리아로 간 것이었다. 가버나움을 잠시 방문한 후, 그는 며칠 동안 나사렛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 4월 중순에 그는 티레를 향하여 나사렛을 떠났다. 그곳에서 그는 북쪽으로 여행하여 시돈에 며칠 동안 머물렀지만, 그의 목적지는 안디옥이었다.

134:7.2 (1492.2) 이 해에 예수는 혼자서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를 두루 돌아다녔다. 이 여행을 통하여, 그는 다른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나사렛의 목수, 가버나움의 배 건조자, 다마스커스의 서기관, 알렉산드리아의 교사 등이 그것이었다.

134:7.3 (1492.3) 안디옥에서 사람의 아들은 두 달을 살면서, 일, 관찰, 공부, 방문, 사명활동을 하였으며, 그 동안 내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그들이 인간 실존이라는 환경에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지에 대해 배웠다. 이 기간 중 3주 동안 그는 천막-만드는 자로서 일하였다. 그는 이번 여행 중에 방문했던 어떤 도시들보다도 안디옥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다. 10년 후,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고 거기에서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다마스커스 서기관의 교리들에 대해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제자들이 주(主)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134:7.4 (1492.4) 예수는 안디옥으로부터 케자리아를 향하여 해변을 따라 남쪽으로 여행하였고 그곳에서 몇 주를 지내다가 해변을 따라 요파로 내려갔다. 요파에서 그는 잠니아, 아쉬돏, 가자를 향하여 내륙 쪽으로 여행하였다. 가자에서부터 그는 내륙 도로를 택하여 비엘세바로 갔고 그곳에서 일 주일동안 머물렀다.

134:7.5 (1492.5) 그리고 나서 예수는 사적(私的)으로 혼자 한 것으로는 마지막으로 되는 여행을 출발하였으며, 팔레스타인의 중심부를 통과하여, 남쪽에 있는 비엘세바로부터 북쪽의 단으로 갔다. 북쪽으로 가는 여행 중에 그는 헤브론과 베들레헴(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출생지를 방문하였다), 예루살렘(그는 베다니를 방문하지 않았다), 비어롯, 레보나, 시카, 세켄, 사마리아, 게바, 엔-가님, 엔도르, 마돈을 들렸고; 막달라와 가버나움을 지나서 그는 북쪽으로 여행하였다; 메롬의 우물들 동쪽을 지나가면서 카라타를 지나 단, 곧 케자리아 빌립보로 갔다.

134:7.6 (1492.6)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는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을 떠나 헤르몬 산으로 가도록 예수를 인도하였고, 그곳에서 예수는 자신의 인간 마음을 충만히 이해하는 일을 완결했으며, 땅에서의 나머지의 자신의 사명에 온 전력을 효과 있게 하는 작업을 완성할 수 있었다.

134:7.7 (1492.7) 이 체험은 유란시아에서의 주(主)의 지상 일생에 있어서 매우 다르고 특이한 신(新)시대들 중의 하나였다. 매우 비슷한 또 하나의 체험은, 그의 세례 직후에 그가 혼자서 펠라 가까이의 언덕을 지나갈 때 가진 것이었다. 헤르몬 산에서의 이 고립 기간은 그의 순수한 인간 생애의 종료, 필사자 증여의 엄밀한 법 해석상의 종료를 표시하는 것이었으며, 반면에 나중에 있었던 고립 기간은 증여에서의 더욱 신성한 위상의 시작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예수는 헤르몬 산기슭에서 6주 동안을 혼자 하느님과 함께 지냈다.

제 8 장. 헤르몬 산에서의 체류

134:8.1 (1492.8) 케자리아 빌립보 근처에서 얼마 동안을 지낸 후에, 예수는 자신의 생필품(生必品)들을 준비하였으며, 그것을 짐을 싣는 짐승 위에 붙들어 매고, 티그라스라는

아이를 데리고 다마스쿠스 길을 따라 헤르몬 산기슭에 있는 한때 베이트젠이라고 알려진 마을로 갔다. 그곳에서 서기 25년 8월 중순 경 그의 본부를 정하고 물자들을 티그라스에게 맡아보게 한 후, 그는 인적이 드문 산바탈을 올라갔다. 그 첫째 날에 티그라스는 약 해발 6,000피트 되는 지점까지 예수를 동행하였고, 그들은 그곳에 돌로 저장고를 지었으며, 티그라스가 일주일에 두 번씩 그곳에 음식을 갖다 놓기로 하였다.

134:8.2 (1493.1) 첫 날, 티그라스를 보낸 후, 예수는 산을 약간 더 올라서 기도하기 위해 멈추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아버지에게 “티그라스와 함께” 할 수호 세라핌천사를 보내 주실 것을 기도하였다. 그는 필사자 실존의 실체와의 그의 마지막 투쟁을 혼자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 요청은 수락되었다. 그는 단지 그를 인도하고 유지시키는 내주하는 조절자와 함께 이 엄청난 시험에 들어갔다.

134:8.3 (1493.2) 예수는 산에 있을 동안에 음식을 간소하게 먹었다; 그는 한 번에 하루나 또는 이틀만 금식하였다. 이 산에서 그가 대면하였던 존재, 그리고 그가 함께 영적으로

씨름을 벌였던 존재, 그리고 그가 힘으로 물리쳤던, 초인간적 존재들은 실제였다; 그들은 사타니아 체계 안에 있는 그의 적(敵)들이었다; 그들은, 착란을 일으킨 마음으로부터의 환상을 실체와 구분할 수 없는, 허약하고 굶주린 필사자의 지적 변덕에서 진화되어 나온 상상의 유령들이 아니었다.

134:8.4 (1493.3) 예수는 8월의 마지막 3주와 9월의 첫 3주를 헤르몬 산에서 지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는 마음-납득과 개인성-통제의 순환계들을 성취하는 필사자의 임무를 완결하였다. 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제를 갖는 이 기간 동안, 내주 하는 조절자도 자신에게 맡겨진 봉사를 완료하였다. 이 세상 창조체의 필사자의 목표는 그곳에서 달성되었다. 다만 마음과 조절자의 조화라는 마지막 위상의 완성만이 남아 있게 되었다.

134:8.5 (1493.4) 5주가 넘도록 파라다이스 아버지와 중단없는 밀접한 교제를 가진 후에, 예수는 자신의 본성에 대하여 그리고 시간-공간 개인성 현시활동에서의 물질적 차원을 극복하는 자신의 승리의 확실성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신성한 본성이 인간 본성의

상위에서 지배한다는 것을 충만하게 믿게 되었고, 주저없이 그것을 주장하였다.

134:8.6 (1493.5) 산에서의 체류 기간이 끝나갈 무렵, 예수는 하느님에게 요셉의 아들 여호수아 라는 사람의 아들로써 사타니아에 있는 자신의 적들과 회의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헤르몬 산에서의 마지막 주간에, 엄청난 유혹, 우주적 시험이 발생하였다. 사탄(루시퍼를 대변한)과 반역적인 행성영주 칼리가스티아가 예수 앞에 나왔고 그가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이 "유혹", 반역적인 개인성들의 잘못된 대표 권한 앞에서 인간의 충성심에 대한 이 마지막 시험은 음식이나 사원의 꼭대기 또는 무엄한 행위들과는 상관이 없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왕국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위력 있고 영광스러운 우주의 주권과 관계된 것이었다. 너희들에게 기록되어 전해진 그 상징은, 유치하게 생각하는 진부한 시대의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후대의 세대들은 그 사건 많은 날에 헤르몬 산에서 사람의 아들이 겪어야 했던 투쟁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나를 납득하게 될 것이다.

134:8.7 (1493.6) 루시퍼의 사자들이 제시한 많은 제안들과 반대 제안들에 대하여, 예수는 단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반역을 일으키는 나의 아들인 너에게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성스러운 판결이 있기를 바란다. 나는 너의 창조자-아버지이다; 나는 너를 도저히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고, 너는 이미 나의 자비를 거절하였다. 나는 너를 더 높은 우주의 재판관들의 판결에 맡기기로 하였다.”

134:8.8 (1494.1) 루시퍼가 제안한 모든 절충안들과 미봉책들에 대하여, 육신화된 증여에 대한 그럴듯한 모든 제안들에 대하여, 예수는 오직, “파라다이스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시험적인 괴로운 체험이 완결되자, 떠나갔던 수호 세라핌천사가 예수의 곁으로 돌아와서 그를 섬겼다.

134:8.9 (1494.2) 늦은 여름의 어느 날 오후, 나무들로 둘러싸인 자연의 정적 속에서, 네바돈의 미가엘은 자신의 우주의 절대적 주권을 성취하였다.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세상에서 창조자 아들들이 필사자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육신화한 일생을 살아가야 하는 임무를, 그는 바로 그 날에

완성하였다. 이 감격적인 성취에 대한 우주의 발표는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있었던 그의 세례의 날 까지 미루어졌지만, 그 모든 것은 산에서 그날 실제로 이루어졌다. 예수가 헤르몬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타니아에서의 루시퍼의 반란과 유란시아에서의 칼리가스티아의 탈퇴는 실질적으로 해결되었다. 예수는 자신의 우주 주권을 갖기 위하여 그에게 요구되었던 마지막 값을 이미 지불하였으며, 그것은 그 자체적으로 모든 반역 상태들을 규제하고, 그러한 모든 미래의 격변들이 (그런 것들이 만약 발생한다면) 즉석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어지도록 정해졌다. 따라서 소위 예수의 "큰 시험"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의 세례 직후의 사건이 아니라 세례 이전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134:8.10 (1494.3) 산에서의 체류를 끝내고 예수가 하산할 때, 그는 음식을 가지고 만나는 장소로 올라오던 티그라스를 만났다. 그를 되돌려 보내며 그는 단지 이렇게 말하였다: "휴식기간이 끝났고;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돌아가야만 한다." 그들이 단으로 돌아갈 때 그는 아무 말이 없었고 매우 달라진 사람이었으며, 그곳에서 그는 소년에게 당나귀를 주고 그와 작별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가 왔던 같은 길을 따라 남쪽 방향의 가버나움으로 갔다.

제 9 장. 기다림의 시간

134:9.1 (1494.4) 이제는 여름이 끝날 때가 되었고, 속죄의 날과 천막축제 절기가 가까워졌다. 예수는 안식일에 가버나움에서 가족회의를 가진 후, 그 다음 날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났으며, 그들은 호수의 동쪽으로 갔고 게라사를 지나 요단 계곡으로 내려갔다. 가는 도중에 그가 그의 동행자와 함께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요한은 예수에게 큰 변화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134:9.2 (1494.5) 예수와 요한은 베다니에서 그날 밤을 묵으면서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과 함께 지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들은 거의 3주 동안 그 도성(都城)의 안과 근처에서 보냈는데, 적어도 요한은 그랬다. 요한은 여러 날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한편 예수는 가까이에 있는 언덕을 거닐거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영적 교제를 여러 차례 가지면서 지냈다.

134:9.3 (1494.6) 그들 둘 모두 속죄의 날의 엄숙한 예배봉사에 참석하였다. 요한은 유대 종교 의식의 모든 날들 중에서 이날의 의식에 가장 깊은 감명을 받았지만, 예수는 생각에 잠긴 채, 조용한 구경꾼으로 남아있었다. 사람의 아들에게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가엾게 보였고 애처롭게 보였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격과 속성을 잘못 대표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이 날의 모든 행위들을 신성한 공의의 사실들과 무한한 자비의 진리들을 우스꽝스럽게 그리는 장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성격과 우주에서의 그분의 자비로우신 행위성에 대한 진정한 진리를 선포하고 싶은 열정에 타올랐지만, 신실한 감시자가 그에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베다니에서, 그가 제시하였던 많은 의견들이 요한을 매우 혼란시켰으며; 요한은 그날 밤 예수가 그들에게 말한 것에 대한 실제 의의(意義)를 결코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였다.

134:9.4 (1495.1) 예수는 천막축제 주간 내내 요한과 함께 남아있기로 계획하였다. 이 축제는 모든 팔레스타인의 연중 공휴일이었다; 유대인들의 휴가철이었다. 비록 예수는 이 의식의 흥겨운 잔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노소(老少)를

막론하고 가벼운 가슴으로 즐겁고 자유분방하게 노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도 즐거워했으며 만족스러운 체험을 했던 것이 분명하였다.

134:9.5 (1495.2) 경축의 주간 한창인 중간에. 축제가 완결되기도 전에, 예수는 자신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와 좀 더 긴밀한 교제하기를 위하여 언덕으로 가겠다는 말을 하고 요한에게서 떠나갔다. 요한이 그와 함께 가려고 하였으나 예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축제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도록 지시하였다: “너는 사람의 아들의 짐을 같이 지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파수자만이 도시가 평화 속에 잠들어 있는 동안 불침번을 서야만 한다.”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베다니 근처에 있는 언덕에서 거의 일주일을 홀로 지낸 후, 그는 가버나움으로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울이 목숨을 버렸던 장소 가까이에 있는 길보아산 기슭에서 하루 밤과 낮을 혼자 지냈으며; 그가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요한과 예루살렘으로 떠났을 때보다도 더 기분이 쾌활한 것처럼 보였다.

134:9.6 (1495.3) 다음 날 아침에 예수는 세베대의 작업소에 두었던 자신의 소지품이 들어있는 상자로 가서 작업복을 꺼내 입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직접 작업에 참여하였다: “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바쁘게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는 배를 만드는 목공소에서 동생 야고보 곁에서 다음 해 1월까지 몇 달 동안 일하였다. 예수와 함께 일한 이 기간이 끝난 후부터는, 야고보는 자신이 납득하기 힘든 사람의 아들의 일생의 과업에 대해 어떤 의심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결코 다시는 예수의 사명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실제로 그리고 전혀 포기하지 않았다.

134:9.7 (1495.4) 배를 만드는 목공소에서의 예수의 이 마지막 작업 기간 동안, 그는 좀 더 큰 배의 실내를 완결하는 일에 그의 모든 시간을 보냈다. 그는 모든 일에 큰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훌륭한 배를 완성시켰을 때 인간 성취의 만족을 체험하는 듯이 보였다. 그는 사소한 일들에는 거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지만, 맡은 일의 핵심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공을 많이 들이는 일꾼이었다.

134:9.8 (1495.5)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설교를 하는 요한에 대한 소문이 가버나움까지 왔으며, 요한은 이렇게 외쳤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예수는 요한이 사명활동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강의 개울로부터 요단 계곡을 따라 천천히 올라오고 있다는 이러한 소식들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다음 해인 서기 26년 1월, 요한이 펠라 가까이에 있는 지점까지 강을 따라 여행하기까지, 예수는 배를 만들면서 일을 계속하였으며, 그 때에 그는 작업도구들을 내려놓고, “나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였고,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로 갔다.

134:9.9 (1495.6) 그러나 엄청난 변화가 이미 예수에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가 그 지역의 땅들을 오가며 방문하고 봉사했던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대중을 위한 선생으로 나타난 그를, 이전 세월 동안에 그들이 사적인 한 개별존재로 알고 지내며 사랑하였던 동일한 개인임을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전에 그를 알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대중을 위한 그리고 권위 있는 선생으로 나타난 그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러한

마음과 영의 변환이 여러 해 동안 진행되어 왔었고, 그 사건 많은 헤르몬 산에서의 체류기간동안에 완결되어졌기 때문이었다.

제 135 편 세레자 요한

135:0.1 (1496.1) 세레자 요한은, 일 년 전 6월에 가브리엘이 엘리자벳에게 나타나서 약속한 대로, 기원 전 7년 3월 25일에 태어났다. 5개월 동안 엘리자벳은 가브리엘의 방문을 비밀로 하였다; 그녀가 남편인 사가리아에게 말하였을 때, 그는 매우 고심했었으나 요한이 태어나기 6주 전에 이상한 꿈을 꾸 후에는 그녀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 가브리엘이 엘리자벳을 방문한 것과 사가리아의 꿈 이외에는 세레자 요한의 출생과 관련하여 이상하거나 초자연적인 사건은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다.

135:0.2 (1496.2) 8일째 되는 날에 요한은 유대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았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4마일 가량 떨어져 있는, 그 당시에는 유다의 도시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에서, 그는 날이 가고 해를 거듭하면서 평범한 아이로 자라났다.

135:0.3 (1496.3) 요한의 어린 시절 중에서 가장 기록할만한 발생사건은 그가 부모와 함께 예수와 나사렛의 가족들을 방문한 일이었다. 이 방문은 그가 6살이 조금 넘었을 때인, 기원 전 1년 6월의 일이었다.

135:0.4 (1496.4) 나사렛에서 돌아온 후 요한의 부모는 이 아이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 작은 마을에는 회당 학교가 없었지만; 그러나 사가리아는 사제로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고, 엘리자벳도 유대의 평균적인 여인들보다는 교육수준이 매우 높았다; 그녀 또한 “아론의 딸들”의 자손으로 사제의 혈통이었다. 요한이 독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정신적, 영적 훈련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다. 사가리아는 아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만 봉사하였다.

135:0.5 (1496.5) 사가리아와 엘리자벳은 양을 기르는 소규모의 목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땅만으로는 거의 생활이 안 되었으나, 사가리아는 사제신분에게 바치어져있는 성전의 기금으로부터 정기적인 수당을 받아들였다.

제 1 장. 나지르인이 된 요한

135:1.1 (1496.6) 요한은 14세에 졸업하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지만, 그의 부모는 이 해를 그가 정식 나지르인의 맹세를 하기에 적당한 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사가리아와 엘리자벳은 그들의 아들을 사해(死海) 아래에 있는 엔게디로 데리고 갔다. 그곳은 나지르인 형제회의 남부 본부였으며, 그곳에서 요한은 정식으로 경건하게, 종신토록 있을 이 계층에 가입하였다. 이들 의식을 치르면서,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으며 죽은 자에게 손대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후에, 가족들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요한은 거기서 성전에 나지르인 서약을 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헌물을 제공하는 일을 끝냈다.

135:1.2 (1496.7) 요한은 자신의 눈부신 전임자들인 삼손과 예언자 사무엘에게 실시되었었던 것과 똑같은 종신 헌납의 맹세를 하였다. 종신(終身) 나지르인은 신성스럽고 성스러운 개인성으로 여겨졌다. 유대인들은 나지르인을 거의 대제사장과 똑같은 존경과 숭배로서 여겼으며, 종신토록 헌납된 나지르인들이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135:1.3 (1497.1) 요한은 아버지의 양들을 보살피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돌아왔고 고결한 성격의 강한 남자로 자라났다.

135:1.4 (1497.2) 16세가 되었을 때, 요한은 엘리야에 관한 글을 읽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갈멜산의 선지자에게 지대한 감명을 받게 되어 그의 복장을 본받기로 결정했다. 그 날 이후로 요한은 항상 가죽 허리띠를 두르고 털옷을 입었다. 16세가 되었을 때 그는 6피트 이상으로 자랐고 거의 충분하게 자랐다. 흘러내리는 긴 머리와 특이한 복장을 한 그는, 정말로 눈길을 끄는 한 젊은이였다. 그의 부모는 약속의 아이이자 종신 나지르인인 자신들의 외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제 2 장. 사가리아의 죽음

135:2.1 (1497.3) 몇 달 동안 병을 앓은 후에 사가리아는 서기 12년 7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때 요한은 막 18세가 되었다. 나지르인의 서약 중에는 자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만지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로

요한은 매우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요한은 비록 죽은 자 때문에 몸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하여 서약했던 규율을 따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지르인 계층에서의 요구사항에 전적으로 복종했었는지 의문을 가졌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인들의 정원에 있는 나지르인의 구역에 가서 자신의 정화(淨化)를 위하여 요구되는 희생물을 바쳤다.

135:2.2 (1497.4) 이 해 9월에 엘리자벳과 요한은 마리아와 예수를 방문하러 나사렛으로 갔다. 요한은 그의 일생의 임무를 시작할 것을 바로 결심하려 하였지만, 예수가 말뿐만이 아닌 그의 행동으로 보인 본보기에 의해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서는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아버지의 때가 도래하기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 이 즐거운 여행을 끝내고 예수와 마리아에게 작별한 이후로, 예수가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올 사건까지, 그들은 서로 다시 만나지 않았다.

135:2.3 (1497.5) 요한과 엘리자벳은 집으로 돌아와 미래를 위한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했다. 성전 기금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사제의 수당을 받기를 요한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2년쯤 지난 후에는 그들의 집까지도 거의 처분해야 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양떼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요한이 20세 되던 해 여름에 그들은 헤브론으로 이사하였다. 소위 “유대 광야”라고 불리는 곳에서, 요한은 엔게디로부터 사해로 합류하는 좀 더 큰 시냇물의 지류인 개울가를 따라 양을 쳤다. 엔게디 거류민단에는 종신 나지르인과 일시적으로 헌납된 나지르인뿐만 아니라, 가축 떼와 함께 이 지역에 모여서 나지르인 형제회와 형제우애를 가졌던 금욕하는 수많은 다른 목자(牧者)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양을 치는 일과, 부자 유대인이 그 계층에게 기증한 선물들로 생활을 유지하였다.

^{135:2.4 (1497.6)}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한이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횟수가 줄었고 반면 엔게디로의 출입이 늘어났다. 그는 대부분의 나지르인들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로서는 그 형제회와 충분히 형제우애를 가지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그러나 그는 엔게디 거류민단의 유명한 영도자이며 우두머리인 아브너를 매우 좋아하였다.

제 3 장. 목자의 생활

135:3.1 (1497.7) 이 작은 여울의 계곡을 따라, 요한은 12개가 넘는, 돌로 만든 움막과 돌을 쌓아서 밤을 지내기 위한 가축우리들을 만들었으며, 그 안에서 양떼와 염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 목자로서의 요한의 일생은 그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잘 제공해 주었다. 그는 베스-주르의 고아 소년인 에즈다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떤 면으로는 그 소년을 이미 양자로 삼은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는 요한이 안식일 예배봉사를 드리려고 앵게디로 내려갔을 때는 물론, 어머니를 방문하거나 양을 팔기 위해 헤브론으로 갔을 때에도, 그를 대신하여 양떼를 돌보았다. 요한과 그 소년은 양고기, 염소우유, 석청, 그 지방의 식용 메뚜기를 먹으면서 매우 간소한 생활을 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정해진 식사는 때때로 헤브론과 앵게디에서 가져오는 식량으로 보충되었다.

135:3.2 (1498.1) 엘리자벳은 팔레스타인과 세상의 관련사에 대한 소식을 요한에게 계속해서 전해주었다. 그리고 옛 체제가 종말을 고하는 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가 새 시대, "하늘의 왕국"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전령이 될 것이라는 그의 신념은 점점 더 깊어갔다. 이 억센 목자는

선지자 다니엘의 글들을 특히 좋아하였다. 그는, 사가리아가 그에게 바빌론으로부터 시작하여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까지 세상의 위대한 왕국에 대한 역사를 대표한다고 말해 주었던, 위대한 표현인 다니엘의 묘사를 천 번이나 읽었다. 요한은 로마가 이미 여러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과 종족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강하게 뭉쳐진 굳건한 통합된 제국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로마가 앞으로 시리아, 이집트, 팔레스타인과 다른 영토들로 더 갈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는데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리니 이것은 결코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 왕국은 다른 민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이들 왕국을 쳐서 멸하고 언제까지나 설 것이다.” “그에게 영토와 영광과 왕국을 주고 모든 백성과 왕국들과 언어가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영토는 영속하는 영토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왕국은 폐하지 아니할 것이다.” “왕국과 영토, 온 하늘 밑에 있는 왕국의 위세를 지고자의 성자(聖者)들의 민족에게 주게 되리니 그의 왕국은 영속하는 왕국이요. 모든 영토가 섬기고 복종하리라.”

135:3.3 (1498.2) 요한은 예수에 관하여 부모로부터 들은 것과 그리고 성서에서 자기가 읽은 구절들 때문에 생긴 혼란에서 결코 완벽하게 헤어난 적이 없었다. 다니엘에서 그는 다음 구절을 읽었다: “내가 또 밤 환상(幻想) 중에 보았으니,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왔고, 그에게 영토와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들 선지자의 말들은 자기 부모가 자신에게 가르친 것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가 18세에 예수를 방문하였을 때 그와 나누었던 이야기도 역시 성서의 말들과 맞지 않았다. 이러한 혼동에도 불구하고, 그가 혼란을 일으킬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먼 사촌인 나사렛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이고, 그는 장차 다윗의 왕좌에 앉을 것이며, 그(요한)는 그의 도래를 미리 알리는 자가 될 것이며 그를 지지하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리라는 사실을 그에게 확신시켰다.

135:3.4 (1498.3) 요한은 로마의 타락과 사악함에 대하여 그리고 그 제국의 방탕함과 도덕적 결핍에 관하여 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그가 알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와 유대 총독의 사악함으로부터, 그는 그 시대의 마지막이 절박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어 했다. 이 억세고 그리고

본성에서 고결한 아이에게, 세상은 이제 사람의 시대가 끝나고 새롭고 신성한 시대—하늘의 왕국—가 임할 수 있도록 무르익은 것으로 보였다. 자신이 구(舊)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임과 동시에 새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가 된다는 느낌이 요한의 가슴속에서 자라났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선포를 하고 싶은 넘치는 충동이 끓어올랐다: “회개하라! 하느님과 함께 하라! 마지막 날을 위해 준비하고; 세상 관련자들의 새롭고 영원한 체제, 하늘의 왕국 도래를 위하여 너희 자신들을 준비해라.”

제 4 장. 엘리자벳의 죽음

^{135:4,1 (1499.1)} 서기 22년 8월 17일, 요한이 28세가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직계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와 접촉할 수 없다는 나지르인의 제약 조건들을 알고 있는 엘리자벳의 친구들은, 요한에게 그 소식을 알리기 전에 장례식 준비를 끝냈다. 그가 어머니 죽음의 소식을 받았을 때, 그는 에즈다에게 양떼들을 앵게디로 몰고 가도록 시켰고 자신은 헤브론으로 떠났다.

135:4.2 (1499.2)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앵게디로 돌아와서 그는 자신의 양떼를 형제회에게 기증하고,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한 계절 동안 바깥세상과의 접촉을 끊었다. 요한은 신성에 가까이 가는 오직 전통적 방식만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단지 엘리야, 사무엘, 다니엘의 기록만을 잘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엘리야는 그가 이상(理想)으로 여기는 선지자였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생들 중에서 첫째가는 사람이었으며, 요한은 자신이 하늘의 메신저로서의 이러한 장구하고 빛나는 계열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진정으로 믿었다.

135:4.3 (1499.3)

2년 반 동안, 요한은 앵게디에서 살았고, 형제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에 대해 설득하였다; “하늘의 왕국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초기 가르침들은, 당시의 유대 관념과, 그들의 이방 통치자의 손으로부터 유대 민족의 구원을 약속한 메시아의 개념에 근거를 둔 것들이었다.

135:4.4 (1499.4)

이 기간 동안 요한은 나지르인들의 본거지인 앵게디에서 자신이 발견한 성스러운 글들을 많이 읽었다.

그는 특히 이사야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당대에
이르기까지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에 의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이사야서의 마지막 다섯 장을 읽고 또
읽었으며, 그는 이 예언들을 그대로 믿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음의 구절을 말라기에서 읽었다: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아비들의 가슴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가슴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인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요한으로 하여금 곧
도래할 왕국에 대해 설교하고,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올 진노로부터 도망갈 것을
권고하러 나아가는 것을 저지한 것은, 엘리야가
돌아온다는 말라기의 약속뿐이었다. 요한은 곧 도래할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무르익어 있었지만, 앞으로 올
엘리야에 대한 기대가 그로 하여금 2년 이상이나 뒤로
물려서 있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말라기가 의미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예언은 문자그대로의 의미였을까? 아니면 상징적인
것이었을까? 그는 마침내 첫 번째 선지자가 엘리야로

불렸으므로 마지막 선지자도 결국에는 같은 이름으로 불려야 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엘리야라고 부르지 않을 만큼, 그러한 생각에 대해 상당한 회의를 품었다.

^{135:4.5 (1499.5)} 요한으로 하여금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죄와 타락에 대해 직선적이고 비타협적인 공격 방법을 선택하게 한 것은 엘리야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는 엘리야처럼 옷을 입었고 엘리야처럼 말하려고 애를 썼는데; 외모로 나타나는 모든 측면에서 그는 옛날 선지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본성적으로 건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아이였고,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당당한 정의로운 설교자였다. 요한은 무식한 자가 아니었으며 유대 성서에 대해 학식이 높았으나, 세련되어 있지는 못하였다. 그는 명철한 사색가였고 힘 있는 웅변가였으며 불같은 탄핵자였다. 그는 자기 시대의 전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설득력 있게 꾸짖는 사람이었다.

^{135:4.6 (1499.6)} 드디어 그는 하느님의 왕국인 새 시대를 선포하는 방법을 생각해 내었는데; 그는 자신이 메시아의 전령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였다; 모든 의심을 쓸어버리고, 서기 25년

3월 어느 날, 짧기는 하였지만 찬란한 사명을 시작하기 위하여 대중을 위한 설교자로서 앵게디를 떠났다.

제 5 장. 하느님의 왕국

135:5.1 (1500.1) 요한의 메시지를 납득하기 위해서는, 그가 활약하였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처지를 고려해야만 한다. 거의 100년 동안이나 모든 이스라엘인들은 궁지에 빠져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계속해서 이방 군주들에게 종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해야 할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모세가 가르치기를, 정의는 반드시 번영과 힘으로 보상받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하느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었던 말인가? 왜 다윗의 왕좌는 황폐하고 비어있는가? 모세의 교리와 유대의 선지자들의 교훈들에 비추어 보면, 유대인들은 오래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자신들의 민족적 처참함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35:5.2 (1500.2) 예수와 요한의 시대보다 약 100년 전에, 종교적 선생들의 새로운 학파인 종말론자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생겨났다. 이 새로운 선생들은 유대인들의 고통과 굴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신앙 체계를 유도해 내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민족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데에 근거를 두었다. 그들은 바빌론과 다른 나라들에 의한 지나간 날들의 포로 상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미 잘 알려진 이유들로 다시 되돌아갔다. 그러나 종말론자들은 가르치기를, 이스라엘 민족은 기운을 차려야 한다; 자신들의 고통의 날은 거의 끝이 나고 있고;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에 대한 단련은 거의 완결되었으며; 이교도에 대한 하느님의 인내심도 거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였다. 로마 통치의 종료는 시대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새로 나타난 이 선생들은 다니엘의 예언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고, 창조는 그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은 곧 하느님의 왕국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끈기 있게 가르쳤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의 골자가 되었던 그 단어—하늘의 왕국—의 의미였다.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의 왕국”은 단지 한 가지의 의미가 있을 뿐이었는데: 하느님(메시아)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것과 똑같은 힘의 완전함으로 이 세상의 왕국들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으로

정의로운 국가—“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의미하였다.

135:5.3 (1500.3) 요한의 시대에 모든 유대인들은 간절하게 물어 보았는데: “왕국은 언제쯤에나 오게 됩니까?”라는 것이었다. 이방 나라의 통치는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의견이었다. 온 유대사회에는, 오랜 세대에 걸쳐 품었던 갈망의 완료상태가 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 발생할 것이라는 열렬한 희망과 강렬한 기대감이 넘치고 있었다.

135:5.4 (1500.4) 유대인들은 도래할 왕국의 성격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추측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 사건은 절박하게 임박하였고 바로 문전 밖에까지 가까이 왔다고 하나같이 믿었다. 구약성경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다윗왕의 후계자인 메시아에 의해 다스려지는, 적들로부터 해방되어 재건된 유대 국가를 위한 새로운 왕이 팔레스타인에 나타나리라고 문자 그대로 기대하였는데, 메시아가 빠른 시일 내에 온 세상의 정당하고 정의로운 통치자로 인정되어 질 것이라고 믿었다. 소규모이긴 하지만, 다른 믿음이 깊은 유대인들의 집단은, 이 하느님의

왕국에 대하여 매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도래할 새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과 세상은 어떤 종말에 가까웠다는 것과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느님의 왕국의 설립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쳤으며; 또한 이 왕국은 영속하는 영토가 될 것이라는 것과 죄는 끝이 날 것이라는 것과 새 왕국의 시민들은 이러한 끝없는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도 가르쳤다.

135:5.5 (1500.5) 어떤 철저한 평화 혹은 정제의 훈련이, 땅에서의 새로운 왕국의 설립 이전에 필요하다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였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파괴할 세계적인 전쟁이 잇달아 일어날 것이며 반면에 믿는 자들이 휩쓸어서 우주적이며 영원한 승리를 이룩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영성주의자들은, 왕국이 하느님의 큰 심판에 의하여 예고될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심판은 불의한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의 심판으로 내쫓길 것이며, 그와 동시에 선택된 백성들 중에서 믿음을 지닌 성자(聖者)들을 높이 들어올려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국가들을 통치할 사람의 아들과 함께 명예롭고 권위 있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후대의 집단은 믿음이 강한 많은 이방인들도 새 왕국의 국민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믿기까지 하였다.

135:5.6 (1501.1) 어떤 유대인들은, 하느님이 직접적이고도 신성한 간섭을 함으로써, 새로운 이 왕국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중재(仲裁)하는 어떤 대리인(代理人)인 메시아가 개입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요한과 예수 시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는, 메시아라는 용어가 그런 의미로서만 간직될 수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단지 하느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를 가리키든지 또는 의로운 삶을 선포하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한 모든 신성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선지자라는 이름을 붙였다. 메시아는 선지자 이상이었는데; 메시아는 하느님의 왕국인 새 왕국의 설립을 이룩하는 존재였다. 이러한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누구라도 전통적인 유대인의 감각으로 말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었다.

135:5.7 (1500.7) 누가 이러한 메시아가 될 것인가? 이 또한 유대 선생들은 의견이 달랐다. 나이든 사람들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교리에 집착했다. 새로운 자들은, 새 왕국은 하늘왕국이기 때문에 새 통치자 역시 하늘에서 하느님 오른쪽에 오래 앉아 계셨던 신성한 개인성이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상하지만, 새 왕국의 통치자를 인간 메시아,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하느님의 아들—인 하늘의 영주로 보았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 통치권자를 기대하면서 오래도록 기다려 왔었다. 요한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임박하였다!”라고 선포하였을 때, 유대 나라의 종교적 배경은 이상과 같았다.

135:5.8 (1500.8) 그러므로, 도래할 왕국에 대한 요한의 발표는, 그의 정열적인 설교를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6가지 이상의 다른 의미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게 된다. 그러나 요한이 사용하였던 구절들에게 그들이 어떤 의의들을 부여하였다 할지라도, 유대인-왕국을 기대하였던 이러한 여러 집단의 각 사람들은, 듣는 이들에게 “앞으로 올 진노로부터 도피”하라고 그렇게 엄숙하게 권하는,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진지하고 열렬하고 만반의 준비가 된, 정의로움과 회개의 선포자에 매료되었다.

제 6 장. 설교를 시작한 요한

^{135:6.1 (1501.4)} 서기 25년 3월 초기에, 요한은 사해의 서쪽 해안을 따라서 여리고 반대쪽에 있는 요단강으로 올라가며 여행하였는데, 그 강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처음으로 약속된 땅에 들어갈 때 건너 지나간 고대의 유서 깊은 곳 이었다; 그리고 강의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그는 강의 입구에 자기 자리를 잡았고 강을 넘어 오가면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하였다. 이곳은 모든 요단강 건널목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었다.

^{135:6.2 (1501.5)} 요한의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의 설교자 이상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였다. 유대 광야에서 온 이 이상한 사람에게 귀를 기울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다고 믿으면서 떠나갔다. 지친 가운데에서 기다리던 이 유대인의 혼들이 그러한 진지한 사람에 의해 깊게 선동되었던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모든 유대 역사 중에서, 믿음이 깊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이처럼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갈망하거나 그렇게 열렬하게 “왕국의 회복”을 기다린 적은 결코 없었다. 모든 유대 역사에서, 요한이 전파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그가 요단강의 남쪽 독을 건너 신비하게 나타난 이때만큼, 심오하고도 보편적인 호소를 제시한 적도 결코 없었다.

135:6.3 (1502.1) 그는 아모스처럼 목자 출신이었다. 그의 옷차림은 옛날의 엘리야의 것과 같았고, “엘리야의 영과 힘”으로 자신의 훈계를 큰 소리로 외쳤고, 자신의 경고를 주창하였다. 여행자들이, 그가 요단강 주변에서 설교한다는 소식을 멀리 까지 전하게 되자, 이 이상한 설교자가 팔레스타인 전역에 굉장한 동요를 일으킨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다.

135:6.4 (1502.2) 나지르인인 이 설교자의 활동에는 아주 다른 하나의 새로운 특징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를 믿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요단강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었다. 비록 세례가 유대인 사이에서 새로운 의식(儀式)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요한이 시행하는 방식을 본 적은 없었다. 이방인 중에서의 개종한 자들을 동료로서 성전 밖의 정원에서 세례를 주던 실천 관행은 오래 전부터

있던 것이었지만, 유대인 자신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요구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요한이 설교와 세례를 시작한 때부터 헤롯 안티파스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갈 때까지는 겨우 15개월의 기간이었으나,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135:6.5 (1502.3) 요한은 요단강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기 전에 베다니 개울가에서 4개월 동안 설교하였다. 수만 명의 그의 경청자들 중에는, 호기심 때문에도 얼마 정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은 진정으로 진지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그의 말을 듣기 위하여 유대, 페레아, 사마리아로부터 왔다. 그리고 얼마간의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오기도 하였다.

135:6.6 (1502.4) 이 해 5월에 그가 아직도 베다니 여울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사제들과 레위 사람들이, 요한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지 그리고 누구의 권한에 의하여 설교를 하는지 물어 보기 위하여 그에게 대표단을 보내 왔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다: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가로되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의 하느님을

위해서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부드러운 골짜기가 될 것이요 모든 육신들은 하느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노라고, 가서 너희의 주인들에게 전하라.”

135:6.7 (1502.5) 요한은 용맹스럽기는 하였지만, 재치 없는 설교자였다. 어느 날, 그가 요단강의 서쪽 강둑에서 설교하고 세례를 주고 있는 중에, 바리새인의 집단과 몇 명의 사두개인들이 앞으로 나와 세례를 받기 위해 그의 앞에 섰다. 그들을 물로 인도하기 전에, 요한은 그 집단 전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인데, 경고하노니, 만약 너희가 속죄를 받아들이면 진지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겠는데, 하느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합당한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질 운명이다.” (그가 언급한 12개의 돌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12 지파”들이 처음으로 언약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들이 건너

간 것의 표징을 위하여 바로 그 지점에 세워 놓았던 돌들이다.)

^{135:6.8 (1502.6)}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위한 학급을 수행했는데, 그들에게 새로운 생활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가르쳤고 그들의 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을 주려고 애썼다. 그는 그 선생들에게, 율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함께 가르치도록 조언하였다. 그는 부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먹일 것을 가르쳤으며; 세금 징수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해진 세금 이외에는 더 이상 걷지 말라.” 그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폭력을 사용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그릇된 방법으로 강요하지 말라—너희의 보수에 만족하라.”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조언하였다: “시대의 종말을 위해 준비하라—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제 7 장. 북쪽을 향한 요한의 여행

^{135:7.1 (1503.1)} 요한은 도래할 왕국과 그곳의 왕(王)에 대하여 여전히 혼동된 관념을 갖고 있었다. 그가 설교를 오래 하면 할수록 그는 더 혼동을 겪었지만, 도래할 왕국의 성격에 관한 지적(知的) 불확실성이, 곧 도래할 왕국에 대한

확신으로 차 있는 그의 신념을 줄어들게 하지는 못하였다. 요한은 마음으로는 혼동을 겪었을지 모르지만, 영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 그는 도래할 왕국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었지만, 예수가 그 왕국의 통치자일지 아닐 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신할 수 없었다. 요한이 다윗의 왕좌의 복권에 대한 관념을 버리지 않고 있을 동안에는, 다윗의 도시에서 태어난 예수가 그들이 그토록 오래 기다려 왔던 해방자라는 자신의 부모의 가르침에 모순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그가 영적 왕국의 교리와 지상의 일시적인 시대의 종말에 대해 더 많이 알아 갈수록, 그러한 사건에서의 예수의 역할에 대한 심한 의심을 갖게 되었다. 어떤 때에는 그가 모든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갖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다. 그는 실제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자기 사촌과 함께 이야기를 해 보고 싶었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명백한 약속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135:7.2 (1503.2) 요한은 북쪽으로 여행하면서, 예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였다. 그는 요단강을 거슬러 올라 여행하며 12번 이상 멈추어 있었다.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라고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그가 대답을

하는 중에, “내 뒤에 오시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을 한 것은 아담에서였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뒤에 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오시는데, 나는 엎드려 그가 신고 있는 신발의 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자신의 타작마당을 속속들이 깨끗이 하려고 그의 손에 삽을 들고 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겠지만, 쭉정이는 심판의 불에 태우실 것이다.”

^{135:7.3 (1503.3)}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하여, 요한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자신의 지난날의 모호한 메시지와 비교해 볼 때, 좀 더 도움이 되고 위로를 주는 내용을 매일 매일 더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넓혀가기를 계속하였다. 이 무렵에는, 군중들이 갈릴리와 데카폴리스로부터 몰려왔다. 날을 거듭하면서, 수십 명의 진지한 신도들이 자신들의 경모하는 선생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지냈다.

제 8 장. 예수와 요한의 만남

^{135:8.1 (1503.4)} 서기 25년 12월에 요한이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며 펠라 근처에 왔을 즈음에는, 그의 명성이 온 팔레스타인에

퍼져 있었으며, 그의 활약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도시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예수는 요한의 메시지에 대해 호감을 갖고 이야기하였는데, 이것이 많은 가버나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와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예배종파에 참가하게 만들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어부 야고보와 요한도, 요한이 펠라 근처에서 설교를 시작한 바로 직후인 12월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들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요한을 만나러 갔고, 그 복음전도자의 활동에 대한 생생한, 직접-얻은 보고를 예수에게 하였다.

135:8.2 (1503.5)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는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내려가는 것에 대해 서로 논의하였다; 이제 유다가 안식일 예배봉사를 드리기 위해 가버나움에 왔을 때, 유대회당에서 있었던 예수의 강연을 들은 후,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계획에 대하여 예수와 상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서기 26년 1월 12일 토요일 밤이었다. 예수는 논의를 내일로 미루자고 하였으며, 그 때 대답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는 그날 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긴밀한 교제를 하면서 거의 밤을 지새웠다. 그는 동생들과 점심을 하면서,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에 대하여 조언하려고 계획하였다. 그 일요일 아침에 예수는

평상시와 같이 배를 만드는 목공소에서 일을 하였다. 야고보와 유다가 점심을 갖고 도착했지만 아직은 점심 휴식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재실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들은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예수가 얼마나 규칙적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135:8.3 (1504.1) 점심 휴식시간 바로 전에 예수는 그의 연장들을 내려놓고 작업복을 벗었으며, 그와 함께 작업장에 있던 세 명의 일꾼들에게 오직 “이제 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만을 하였다. 그는 자기 동생들인 야고보와 유다에게 나가서 “나의 때가 이르렀다—같이 요한에게로 가자.”라고 반복하여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펠라를 향해 떠났고 점심은 여행 도중에 먹었다. 이것은 1월 13일 일요일의 일이었다. 그들은 요단 계곡에서 그 날 밤을 지냈고, 요한의 세례 주는 장소에는 다음 날 정오 무렵에 도착하였다.

135:8.4 (1504.2) 요한은 그날의 지원자들에 대한 세례를 막 시작하고 있었다. 수많은 회개자들이 그들의 차례를 기다리며 줄을 서있었고, 예수와 그의 두 동생들도, 도래할 왕국에 대한 요한의 설교를 믿는 열성적인 남녀들의 대열

속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물은 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설교에 관한 예수의 의견을 들었으며, 예수가 자기 앞에 나타나기를 매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의 줄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있었다.

135:8.5 (1504.3) 그렇게 많은 개종자들에게 빠른 시간에 세례를 주는 세세한 일들에 몰두하여, 요한은 사람의 아들이 자신의 바로 앞에 나오기 전까지도 그를 보지 못하였다. 요한이 예수를 알아보았을 때, 그가 자신의 육신의 사촌에게 인사를 하는 동안 그 의식(儀式)은 잠시 정지되었으며 그는, "왜 당신이 나를 만나러 물속으로 내려오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가, "너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당신이 나에게 나오십니까?" 그러자 예수는 요한에게 작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내 말대로 하자,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나와 함께 서 있는 내 형제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이 나의 때가 온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35:8.6 (1504.4) **예수의 음성은 단호하고 권위가 서려있었다.**

요한은 서기 26년 1월 14일, 월요일 정오에 요단강에서 나사렛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 준비를 하면서 감정에 북받쳐 전율하였다. 그렇게 해서 요한은 예수와 그의 두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리고 요한이 이들 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그는 그날의 나머지 세례는 다음 날 정오에 계속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사람들이 떠나갈 때, 아직도 물속에 서있었던 네 사람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으며, 얼마 안 있어서 하나의 환영(幻影)이 잠깐 동안 예수의 머리 바로 위에 나타났으며, 그들은 “이는 내가 그 안에서 기쁨으로 기꺼이 있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다. 예수의 용모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물에서 나와 그들을 떠났고 동쪽의 언덕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를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35:8.7 (1504.5) **요한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어머니의 입을 통하여 수없이 들어왔던, 그가 태어나기 전에 자기 어머니 앞에 나타났던 가브리엘의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에게 해주었다.

요한은 예수에게 “이제 나는 당신이 해방자이신 것을 확실하게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예수가 자기 길을 계속하여 가도록 내버려두었다. 그러나 예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제 9 장. 40일간의 설교

^{135:9.1 (1505.1)} 요한이 자기 제자들(그 당시에 약 25-30 명가량의 그와 항상 함께 거주하던)에게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의 세례와 관련되어 일어났던 일에 관해서 진지하게 토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때 요한이,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었을 때, 또한 그가 이 사실을 예수에게 말해주었는데도 예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었을 때, 그들은 더욱 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 날 밤에는 비가 오지 않았으므로 30여명 되는 이 사람들은 별빛 아래에서 밤늦도록 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예수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언제 다시 그를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였다.

^{135:9.2 (1505.2)} 이 날의 체험 이후에, 요한의 설교는 도래할 왕국과 기다리던 메시아에 관하여 새롭고도 확실하게

주장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예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이 40일 기간은 매우 긴장된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요한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설교를 계속하였으며, 이 무렵에는 요한을 둘러싸고 요단강에 모여드는 넘쳐흐르는 군중들에게 그의 제자들도 설교하기 시작하였다.

135:9.3 (1505.3) 이렇게 40일 동안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많은 소문들이 그 근방으로 퍼졌고, 그 소문들은 티베리아스와 예루살렘까지도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야영지에 있다는 새로운 흥밋거리인, 메시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을 보려고 모여들었지만, 예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 이상한 하느님의 사람이 산으로 갔다고 말하자,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 전체를 의심하였다.

135:9.4 (1505.4) 예수가 떠난 지 약 3주일 후에, 예루살렘의 사제들과 바리새인들의 새로운 대표단이 펠라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요한에게 그가 모세가 약속한 선지자인지 엘리야인지 직접적으로 물었다; 요한이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들은 다시 “당신은 메시아인가?”라고 대담하게 물었고, 요한은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만일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메시아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며 이 모든 동요를 일으키느냐?”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세례를 받아들인 자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겠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겠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반면에, 너희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우리중의 한 분이 돌아올 것이다.”

^{135:9.5 (1505.5)} 40일의 이 기간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어려운 시기였다. 예수에게 요한은 어떤 관계가 될 것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논의의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정치적 흥정과 이기적인 자리다툼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관념들과 개념을 둘러싸고 심각한 논의들이 일어났다. 그가 집단의 영도자가 되어 다윗의 왕좌를 이을 것인가? 여호수아가 가나안-사람들을 취했던 것과 같이, 그는 로마 집단을 무찌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적 왕국을 세우려 올 것인가? 요한 자신도 하늘의 왕국의 설립에 관한 임무에 대하여 자기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고 있지 못하였지만, 그는 오히려 예수가

하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왔다는 소수 의견의 편에 서있었다.

135:9.6 (1505.6) 이러한 날들은 요한의 체험에서 격렬한 나날들이었으며, 그는 예수가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일부는 예수를 찾기 위한 정찰대를 조직하였으나, 요한은 말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때는 하늘의 하느님 손에 달려 있다; 하느님께서 그의 선택된 아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135:9.7 (1505.7) 2월 23일 안식일 이른 아침에, 요한의 무리들은 아침식사를 하는 중에 북쪽을 바라보다가 예수가 자기들에게 오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자, 요한은 큰 돌 위에 올라서서 그의 우렁찬 음성으로 이렇게 외쳤다: “세상의 해방자이신 하느님의 아들을 보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시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내가 광야로부터 나와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며 너희들에게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으라고 설교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고 계시다. 나는 성령이

이 분 위에 강림하는 것을 보았고 하느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선포하는 음성을 들었다.”

135:9.8 (1506.1) 자신의 동생들인 야고보와 유다는 이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는 요한과 둘이 앉아 식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식사를 계속하도록 지시하였다.

135:9.9 (1506.2)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는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는 언제 다시 그들을 보게 될 것에 대해 아무 말씀도 없었다. 자신의 설교와 사명에 대한 요한의 질문에 예수는 단지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의 아버지가 이제까지 해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미래에도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들 두 위대한 사람들은 그 날 아침 요단강 강변에서 헤어졌으며, 육신으로서는 서로 다시 만나지 않았다.

제 10 장. 남쪽으로 여행한 요한

135:10.1 (1506.3) 예수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갔었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가 남쪽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고 느꼈다. 따라서 3월 3일 일요일 아침에 요한과 나머지 제자들은

남쪽으로 그들의 여행을 시작하였다. 그 동안에 요한의 직계 제자들 중 사분의 일은 예수를 찾아서 갈릴리로 떠났다. 그렇게 된 데에는 요한에 대해 혼동을 일으킨 슬픈 일이 있었다. 그는 다시는 그가 예수에게 세례를 주기 이전에 행했던 것과 같은 설교를 하지 않았다. 그는 어쩐지 도래할 왕국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질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일은 거의 완결된 것 같이 느껴졌으며; 마음 둘 곳을 잃었고 외로웠다. 그러나 그는 설교를 하고 세례를 주면서 남쪽으로 여행하였다.

135:10.2 (1506.4) 아담이라는 마을 가까이에서 요한은 여러 주간 동안 머물렀으며, 헤롯 안티파스가 다른 사람의 부인을 부당하게 취한 것에 대해 이곳에서 기억에 남을 공격을 하였다. 이 해(서기 26년) 6월경에, 요한은 1년 전에, 도래할 왕국에 대한 자신의 설교를 시작하였던 곳인, 요단강의 베다니 개울가로 돌아와 있었다. 예수께 세례를 베푼 이후의 주간들 중에는, 요한의 설교 성격이 점차 보통 사람들을 위한 자비의 선포로 바뀌어 갔으며, 반면에 그는 다시 격렬한 태도로 부패된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통치자들을 공공연히 비난하였다.

135:10.3 (1506.5) 요한은 헤롯의 행정구역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그와 그의 제자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경계하게 되었다. 또한 헤롯은 자신의 국내 관련사들에 대한 요한의 공개적인 비난에 화가 나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6월 12일 이른 아침, 군중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또 세례 주는 것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기 전에, 헤롯의 부하들이 요한을 체포하였다. 여러 주가 지나도 그가 석방되지 않게 되자, 그의 제자들은 팔레스타인 전역으로 흩어졌으며,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추종자들과 합세하기 위해 갈릴리로 갔다.

제 11 장. 감옥에 갇힌 요한

135:11.1 (1506.6) 요한은 감옥에서 다소간 쓰라리고 외로운 체험을 하였다. 그의 추종자들은 거의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다. 그는 예수를 매우 만나보고 싶어 하였지만, 사람의 아들을 믿게 되었던 자신의 추종자들의 입을 통해 오직 그의 업적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했어야 했다. 그는 종종 예수와 그의 신성한 사명에 대해 의심을 품도록 유혹되었다. 만약 예수가 메시아라면, 왜 이 견디기 어려운 감옥살이에서 자기를 구해 주지 않는 것일까? 하느님의 광야에서

우락부락했던 이 사람은 그 경멸스러운 감옥에서 일 년 반 이상동안 시들어갔다. 그리고 이 체험은 예수에 대한 요한의 신앙과 충성에 대한 큰 시험이었다. 진정으로 이 모든 체험은 하느님에 대한 요한의 신앙까지도 시험에 들게 하였다. 그는 자신의 사명과 체험의 순수성까지도 의심하려는 유혹에 여러 번이나 빠졌었다.

135:11.2 (1507.1) 감옥에서 여러 달을 지낸 후, 요한의 제자들 한 무리가 그에게 찾아왔으며, 그들은 예수의 대중을 위한 활동들에 대해 보고를 한 후에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과 함께 요단강 저 편에 있던 사람이 번영하고 있으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들은 물론 죄인들과도 함께 식사를 합니다. 당신은 그를 용감하게 증거하였지만, 그는 아직까지도 당신의 해방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내가 말하였던,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너희는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행하였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도 기쁨을 향유하는 법이니, 나에게서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다. 그는 흥하여야만 하고 나는 쇠하여야만 한다. 나는 이 세상의 사람이고 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다. 나사렛 예수는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 모두들 위에 계신다. 사람의 아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왔고 하느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영(靈)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 손에 맡겼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말들은 진리이고 영구적인 것이다.”

135:11.3 (1507.2) 이 제자들은 요한의 선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고, 그들 모두는 아무 말 없이 떠나갔다. 요한 역시 몹시 동요되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언의 말을 했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 예수의 사명과 신성에 대해 다시는 결코 전적으로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가 한 마디의 전갈도 그에게 보내지 않는 점과 그를 만나러 오지 않는 점 그리고 그를 감옥에서부터 구해내기 위한 어떤 권능도 행하지 않는 점은 그에게 비통한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렇지만 예수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예수는 요한을 매우 사랑하였으나, 이제는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가 이 세상을 하직하면 그에게는 위대한 일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과 땅에서의 요한의 일은 이제 완결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설교자-선지자의 생애의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 데에 자신이 끼어드는 것을 자제하였다.

135:11.4 (1507.3) 감옥에서의 이러한 긴 불안 상태는, 인간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죽기 바로 며칠 전에 요한은 예수에게 믿을만한 사람들을 보내어 다시 물었다: “나의 일은 끝난 것입니까? 왜 나는 감옥에서 괴로워해야만 합니까? 당신은 진정한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들 두 제자들이 이 전갈을 예수께 전했을 때,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요한에게 돌아가서, 내가 잊지 않고 있다는 것, 한편으로 이것이 나 또한 고통이며, 이는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정의(正義)를 성취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에게 말하라. 요한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가난한 자가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나의 지상 사명에서의 귀한 전령에게, 만약 그가 나를 의심하거나 실족하지 않는다면, 그는 장차 다가 올 시대에서 넘치는

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전해라.” 이것이 요한이 예수로부터 받아들인 마지막 말이었다. 이 메시지는 그를 매우 안심시켰으며, 그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 주었고, 이 기억할 만한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났던 그의 육신의 일생의 비극적인 종말을 그에게 준비시켜 주었다.

제 12 장. 세례자 요한의 죽음

135:12.1 (1508.1) 요한이 남쪽 페레아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되었을 때, 그는 바로 마케루스의 요새에 있는 감옥으로 보내졌고, 처형을 당할 때까지 그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헤롯은 갈릴리뿐만 아니라 페레아도 지배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에는 페레아에서 줄리아스와 마케루스 두 군데에 거처(居處)를 가지고 있었다. 갈릴리에 있는 공관은, 세포리로부터 새 수도인 티베리아스로 옮겼다.

135:12.2 (1508.2) 헤롯은 요한이 반란을 선동할까 염려하여 그를 석방하기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수많은 페레아인들이 요한을 선지자인 신성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따라서 헤롯은 그를 다룰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여, 그 나지르인 설교자를 그냥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요한은 여러 차례 헤롯 앞에 불러 갔었지만, 만약

석방되는 경우라도 자기가 헤롯의 나라를 떠나거나 혹은 모든 공공 활동들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결코 동의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게다가 계속하여 자라나고 있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새로운 민심의 동요는, 요한을 풀어주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헤롯에게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요한은 또한 헤롯의 불륜의 아내인 헤로디아스의 미움을 매우 심하게 받고 있었다.

135:12.3 (1508.3) 헤롯은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요한과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어떤 때에는 요한의 메시지에 매우 감명을 받기도 하였지만, 요한을 석방하기를 두려워하였다.

135:12.4 (1508.4) 티베리아스에서 아직도 많은 건축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헤롯은 페레아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마캐루스 요새를 특히 좋아하였다. 그때는 티베리아스에 있는 공공 건물들과 관저가 충분하게 완료되기 몇 년 전이었다.

135:12.5 (1508.5) 그의 생일 축하를 위해 헤롯은 갈릴리와 페레아의 높은 관료(官僚)들과 자신의 대신(大臣)들을 마캐루스의 궁전에 불러서 큰 잔치를 벌였다.

헤로디아스는 헤롯에게 요한을 죽여 달라는 자신의 직접적인 청원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요한을 죽이기 위하여 간악한 계획을 세우는 일에 직접 나섰다.

135:12.6 (1508.6) 헤로디아스는 저녁 축제들과 연회의 순서 속에 자기 딸을 연회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도록 주선하였다. 헤롯은 계집아이의 연기에 매우 심히 기분이 좋아졌으며 그녀를 불러 말하였다: “너는 매우 매력이 있구나. 나는 너로 하여 매우 기쁘다. 나의 생일인 오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헤롯은 술이 몹시 취해서 이러한 말을 했던 것이다. 젊은 부인은 물러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헤롯에게 구할 것인가를 물었다. 헤로디아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헤롯에게 가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구해라.” 그리고 젊은 여인은 연회 식탁으로 돌아와서 헤롯에게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내게 주기를 원하옵니다.”

135:12.7 (1508.7) 헤롯은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찼으나 자신이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앓은 자들로 인하여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병정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날 밤 요한은 감옥에서 목이 베어졌고, 병정은 선지자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그것을 연회장 뒤에서 젊은 여인에게 갖다 주었다. 그리고 계집아이는 소반을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요한의 시체를 가지러 감옥으로 왔으며, 그들은 요한을 무덤에 묻은 후에 예수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제 136 편 세례와 40일

136:0.1 (1509.1) 예수는, 요한의 설교에 대중적 관심이 절정에 달하여 있을 때,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출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에, 자신의 대중을 위한 일을 시작하였다. 요한과 예수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요한은 열성적이고 그리고 성실한 일꾼이었지만, 예수는 침착하고 행복한 일꾼이었다; 그의 온 일생 동안 단지 몇 번을 제외하고는 결코 서두르는 일이 없었다. 예수는 세상에게 위로를 가져온 위로자였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본보기였으나; 요한은 거의 위로자 또는 본보기가 되지 못하였다. 그는 하늘의 왕국을 전파하였지만 그로 인한 행복의 세계 안으로는 거의 들어가 보지 못하였다. 예수가 요한을 구(舊)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호평하였지만, 그는 또한 새로운 길이 되는 위대한 빛을 보고 그것을 통하여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간 자들 중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참으로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기도 하였다.

136:0.2 (1509.2) 요한이 다가오는 왕국을 전파하였을 때, 그의 메시지의 중점은: 회개하라! 그리고 앞으로 올 진노(震怒)로부터 피하라는 것이었다. 예수가 설교를 시작하였을 때, 회개하라는 권고는 같았지만, 그러한 메시지 뒤에는 새로운 왕국의 기쁨과 해방의 행복한 소식인 복음이 항상 따라왔다.

제 1 장. 기대하던 메시아의 개념

136:1.1 (1509.3) 유대인들은 고대하는 해방자에 관한 많은 관념들을 갖고 있었으며, 메시아를 가르치는 이들 여러 다른 학파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히브리 경전의 문구들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민족적 역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와 하느님의 왕국인 새 시대에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간주하였다. 초기에는 이 해방자를 “주님의 하인”으로 정시하였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아들”로, 또한

더 후대에는 메시아를 “하느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칭하였거나 아니면 “다윗의 아들”로 칭하였나를 막론하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메시아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였다. 그렇게 하여 그 개념은 “주님의 하인”으로부터 “다윗의 아들”, “사람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로까지 발전되었다.

136:1.2 (1509.4) 요한과 예수 시절에 활동하던 좀 더 유식한 유대인들은 곧 오실 메시아에 관한 관념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고 완전케 하는 존재, 선지자와 사제 그리고 왕이라는 삼중적 직책이 그의 안에서 합쳐진 “주님의 하인”으로 발전시켰다.

136:1.3 (1509.5) 유대인들은 모세가 자기들의 선조들을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기적적인 경이로움으로 구했던 것 같이, 곧 오실 메시아는 더욱 더 큰 기적의 힘과 인종적 승리의 경이로움을 가지고 유대 백성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해줄 것이라고 열렬하게 믿어왔다. 랍비들은, 분명한 모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다고 그들이 단언하는, 거의 500 페이지가 넘는

성서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 기법, 기능의 세부사항에 집착하는 가운데,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의 개인성에 대한 시각은 거의 완벽하게 등한시하였다. 그들은 세상의 구원보다는 유대의 민족적 영광—이스라엘의 세속적인 지위 향상—의 회복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러한 세속적인 메시아의 개념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예언적인 이 언질들을 그들이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았었다라면, 그들의 유명한 메시아 예언들 대부분은,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자로,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자비와 구원에 대한 새롭고도 더 나은 섭리시대를 시작하는 자로 예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매우 자연스럽게 준비시켰을 것이다.

136:1.4 (1510.1) 유대인들은 후광(後光)의 교리를 믿도록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왔다. 그러나 신성한 현존에 대한 이 유명한 상징은 성전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곧 오실 메시아가 그것의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종족적 죄와 사람의 악한 본성에 대하여 혼동된 관념을 갖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의 죄가

인간종족을 저주받게 하였는데, 메시아가 이러한 저주를 없애주고 신성한 호의로 사람을 회복시킨다고 가르쳤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그의 선과 악의 속성을 모두 불어넣었다고 가르쳤으며; 그가 이러한 일의 결과를 보고 매우 실망하셨으며,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고 가르쳤다. 이렇게 가르쳤던 자들은, 이러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악한 본성을 사람으로부터 없애주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믿었다.

^{136:1.5 (1510.2)}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민족적 죄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 개종자들의 반신반의하는 믿음 때문에 자신들이 로마의 통치하에서 계속하여 쇠약해지고 있다고 믿었다. 유대 민족은 아직 온 가슴을 다하여 회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믿었다. 회개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돌았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요한이 설교한,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힘차고 즉각적인 호소력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어떤 열렬한 유대인에게라도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은

오직 한 가지의 뜻이 있을 뿐이었는데: 그것은 메시아의 도래였다.

136:1.6 (1510.3) 미가엘 증여에 있어서, 유대 메시아의 개념과 매우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 두 본성의 연합이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하여 완전한 인간, 초인간, 그리고 신성한 존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념을 갖고 있었지만, 결코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의 연합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의 초기 제자들에게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인간 개념을 초기의 선지자들이 제시하였던 대로, 다윗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 다니엘과 후반기의 여러 선지자들에서의 초인간 관념으로; 에녹서의 저자나 그의 동시대 사람들 중 일부에 의해 묘사되었던 대로, 하느님의 아들로까지 이해하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 두 가지의 본성이 이 세상의 한 개인성으로 연합한다는 참된 개념을 고려해본 적은 결코 한 순간도 없었다. 창조체의 형상으로 창조자가 육신화 한다는 사실은 과거에는 한 번도 계시된 적이 없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 안에서만 계시되었다; 창조자 아들이 육신으로 와서 영역의 필사자

가운데에 거하기 전까지는, 세상은 그러한 일을 알 수 없었다.

제 2 장. 예수의 세례

136:2.1 (1510.4) 예수는, 요한의 설교가 절정에 달하여 팔레스타인이 그의 메시지—“하느님 왕국이 가까이 왔다”—에 대한 기대감으로 불붙고, 온 유대가 심각하고 엄숙하게 자아-검증을 할 당시에, 세례를 받았다. 유대인들의 인종적 연대감은 굉장히 뿌리가 깊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죄가 그의 자녀들을 괴롭힌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한 개별존재의 죄가 민족을 저주할 수도 있다고 굳게 믿었다. 따라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아갔던 사람들 모두가, 요한이 비난하였던 특정한 죄를 자신들이 지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신앙심이 깊은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하여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그들은 혹시라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지연될까봐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죄가 있고 죄로 저주받은 민족에 속해 있다고 느꼈으므로, 스스로 세례를 받으러 나갔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종족적 참회의 결실이 현시하리라고

기대하였다. 따라서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회개의 의식이나 죄 사함을 위하여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요한의 손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가 많은 독실한 유대인들의 본보기를 따른 것에 불과하였다.

136:2.2 (1511.1) 나사렛 예수가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마음의 정복에 관계되는 그리고 영과 함께하는 자아-정체화구현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에서 인간의 진화적 상승의 정점을 이미 달성한, 영역의 필사자이었다. 그는 그 날,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세상들 속에서 하나의 완전하게 된 필사자로 요단강에 그렇게 섰다. 완전한 동조와 충만한 교통이, 예수의 필사자의 마음과, 파라다이스에 계신 아버지의 신성한 선물, 곧 내주(內住)하는 영 조절자 사이에 확립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예수의 조절자가 이러한 특별 임무를 준비하기 위해 과거에 비슷한 방법으로 필사자의 몸으로 와서, 마키벤타 멜기세덱이라는 다른 하나의 초인간 안에 내주하였던 일을 제외하고는, 바로 그러한 조절자가, 미가엘이 자기 우주의 우두머리신분으로 상승한

이후부터, 유란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정상 존재 안에 내주하게 되었다.

^{136:2,3 (1511:2)} 일반적으로, 영역에 있는 한 필사자가 그렇게 높은 개인성의 완전함의 차원을 이루게 될 경우에, 거기에는 필사자의 성숙한 혼이 그와 연관된 신성한 조절자와의 결국 생겨나는 융합으로 종결되는 영적 상승의 예비 현상들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예수가 두 동생들과 함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내려가신 그 날에 나사렛 예수의 개인성 체험 속에서 일어나도록 명백하게 예정되어 있었다. 이 의식(儀式)은 그가 유란시아에서의 순수하게 인간 자신의 일생을 끝내는 마지막 행동이었으며, 따라서 많은 초인간적 관찰자들은 조절자가 자신이 내주하고 있던 마음과 연관하는 것을 목격하리라고 기대했었지만, 그들은 모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새롭고 더 큰 어떤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요한이 그에게 세례를 주기 위하여 손을 예수 위에 얹자, 내주하던 조절자가 요셉의 아들 여호수아의 완전해진 인간 혼으로부터 아주 떠나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신성한 실존개체는 개인성구현된 조절자가 되어 신성별로부터 돌아왔는데, 그는 네바돈에

있는 전체 지역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존재였다. 그렇게 예수는 그 자신의 이전의 신성한 영이 개인성구현된 형태로 자기에게로 되돌아 내려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로부터 기원된 바로 그 영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의 두 동생들과 요한도 역시 이 말을 들었다. 물가에 서있던 요한의 제자들은 이러한 말들을 듣지 못하였고,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의 출현도 또한 보지 못하였다. 개인성구현된 조절자가 오직 예수의 눈에만 보였다.

136:2.4 (1511.3) 이제는 고귀한 신분이 된 개인성구현된 조절자가 다시 돌아와 그렇게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 네 명이 물속에 머무는 동안, 예수는 가까이에 있는 조절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늘을 다스리시는 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가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은 그가 육신을 입고 필사자로 내려오기 전의 자신의 모습과, 그가 육신화된 일생이 완결되고 난 후의

그의 모습인, 하느님의 아들이로서의 자신의 환영(幻影)을 보았는데, 그것은 이제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에 의해 제시되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하늘의 환영은 오직 예수께만 제시되었다.

136:2.5 (1512.1) 요한과 예수가 들었던 것은, 우주 아버지를 대신해서 말했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의 음성이었는데, 왜냐하면 조절자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일부이고, 아버지로서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의 예수의 나머지 일생을 통하여, 이 개인성구현된 조절자가 그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와 함께 연관하였다; 예수는 고귀한 신분이 된 이 조절자와 항상 교제하였다.

136:2.6 (1512.2) 예수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는 아무런 잘못도 회개하지 않았다; 아무 죄도 고백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 하고자 헌신하는 세례였다. 세례를 받을 때에, 그는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라는 마지막 호출인 아버지의 명백한 부르심을 들었으며,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혼자 있기 위하여 40일 동안 떠났던 것이다. 예수는 그의 지상의 친지들과의 직접적인 개인적 만남을 그렇게 얼마동안

피하심으로써, 그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가지고, 모론시아 세상들에서 상승하는 필사자가 우주 아버지의 내적 현존과 융합할 때마다 거치는 바로 그 과정을 유란시아에서 체험하였다.

^{136:2.7 (1512.3)} 이 세례의 날이 예수의 순수하게 인간으로서의 일생을 끝 마쳤다. 신성한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발견하였고, 하느님 아버지는 자신의 육신화한 아들을 발견하셨으며, 그리고 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셨다.

^{136:2.8 (1512.4)} (예수는 세례를 받으실 당시에, 거의 31살 반이었다. 누가는 티베리우스 시저가 15년째 왕위에 있을 때 예수가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아우구스투스가 서기 14년에 죽었으므로, 그것은 서기 29년이 되어야 하는데, 티베리우스는 서기 11년 10월에 자신을 기념하는 동전을 주조하였고, 아우구스투스와 2년 반 동안 함께 황제로 있었다. 따라서 그의 실재적 통치의 15년째 되는 해는, 예수가 세례를 받던 바로 서기 26년이 된다. 또한 이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군림하기 시작하였다.)

제 3 장. 40일

136:3.1 (1512.5)

예수는, 세례를 받기 전에 헤르몬 산 위에서 이슬을 맞으며 6주 동안 자신의 필사자 증여에서의 큰 유혹을 견디어 낸 적이 있었다. 헤르몬 산 그 위에서, 그는 영역의 한 필사자로서 어떤 도움도 없이, 유란시아의 왕위를 노리는 세상의 영주인 칼리가스티아를 만나 그를 격퇴시켰다. 우주의 기록에 의하면, 그 사건 많은 날에 나사렛 예수는 유란시아의 행성영주가 되었다. 그리고 곧 네바돈의 최극 주권자로 선포되어질, 유란시아의 이 영주는, 이제 사람들의 가슴속에 새로운 이 하느님의 왕국을 선포할 계획을 구상하고 그 기법을 결정짓기 위하여 40일 간의 고립기간으로 들어갔다.

136:3.2 (1512.6)

세례를 받은 후에, 그는 자신의 조절자가 개인성구현됨으로써 발생된, 이 세상과 우주의 변화된 관계에 대해 자신을 조절하기 위한 40일에 들어갔다. 페레아 언덕에서의 이 고립기간 동안, 그는 새롭고도 변경된 지상 일생의 위상 속에서 자신이 곧 시작하여 추구해야할 정책과 사용되어질 방법들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예수는 금식(禁食)을 목적으로 하거나 자신의 혼의 시련을 목적으로 은둔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고행자(苦行者)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에서 그런 모든 생각들을 언제까지나 폐지시키려고 왔다. 이러한 은둔 기간을 갖고자 하였던 이유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세레자 요한이 가졌던 동기들과는 전혀 달랐다. 예수는 하늘에 계신 자신의 아버지이신 파라다이스 아버지께서 감시하는, 자신이 만든 우주와, 또한 우주들의 우주와의 자신의 관계를 그 때 온통 자아-의식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유란시아에 육신화 되어 들어오시기 전에 자기 만형인 임마누엘에 의해서 관리-운영되었던 증여 임무와 그에 따른 지시들을 충분히 상기해 냈다. 그는 이제 모든 광대하게 퍼져 있는 관계들을 명료하게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 세상과 자신의 지역우주에 있는 다른 모든 세상들을 위한 그의 대중을 위한 수고를 실행함에 있어서의 계획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의 진행과정을 결정하기 위한 조용한 명상을 위해 얼마 동안 떠나 있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적당한 거처를 찾아 언덕을 방황하다가, 예수는 자신의 우주의 우두머리 집행자인 네바돈의 빛나는 새벽별,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었다. 가브리엘은 이제 우주의 창조자 아들과 개인적 교통을 재수립하였다; 미가엘이 유란시아 증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 에덴시아로 갔을 때 구원자별에서 그의 연관-동료들을 작별한 이래로, 그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가브리엘은, 임마누엘의 지도와 유버사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를 근거로, 이제 그가 우주의 완전해진 주권을 얻었으며 루시퍼 반란의 종결을 위하여 계획된 그의 유란시아 증여 체험이 실천적으로 완결되었다는 소식을 예수께 전하였다. 전자(前者)는, 그의 조절자의 개인성구현이 육신으로의 그의 증여의 완전과 완성을 실증하였던 때인 그의 세례(洗禮) 날에 성취되었으며, 후자(後者)는, 그가 기다리고 있던 티그라스라는 소년을 만나러 헤르몬 산에서 내려온 날에 성취되었던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었다. 지역우주와 초우주의 최고 권한에 입각하여, 주권과 반역에 관계되는 그의 개인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그의 증여 일이 완결되었다는 것을, 예수는 알게 되었다. 그는 세례 받던

날에 있었던 환영(幻影)과 자신 안에 거했던 생각 조절자가
개인성구현의 현상을 통하여, 파라다이스로부터의
직접적인 확인을 이미 받은 상태에 있었다.

136:3.5 (1513.2) 그가 가브리엘과 담소하며 산에서 머무는 동안,
에덴시아의 별자리 아버지가 예수와 가브리엘 앞에 직접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기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미가엘^{611,121}번의 자신의 우주 네바돈에 대한 주권은.
완성 안에서 우주 아버지의 오른 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후원자-형님인 임마누엘이 보낸 유란시아
육신화 증여에 대한 해제(解除)의 소식을 당신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은 이제 지금 당장 또는 이후에 어느 때라도
당신의 선택에 의하여 육신화 증여를 끝내고 당신의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올라가 당신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당신이 애써서-얻은 네바돈의 모든 무조건적인 주권을
말아보는 것은, 당신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또한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허락으로 초우주의 기록이 완성된
것을 증언하면서, 당신의 우주에서 모든 죄-반란을
종결시켰고, 미래에 있어서의 그러한 잠재적인 격동들의
어떤 것이나 혹은 모든 것을 다루기 위한 충분하고도
무제한적 권한을 당신에게 자질로서 부여해 드립니다.

기술적으로 필사자의 몸을 입은 유란시아에서의 당신의 임무는 완결되어진 것입니다. 지금부터의 당신의 행로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136:3.6 (1513.3) 에덴시아의 지고자 아버지가 떠났을 때, 예수는 가브리엘과 우주의 복지에 관하여 긴 이야기를 나누었고, 임마누엘에게 인사말을 전하면서 유란시아에서 그가 시작하려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구원자별에서 관리-운영되었던 증여 이전의 임무와 관련하여 그가 이미 받아들였던 그 조언을 항상 마음에 두겠다는 자신의 확신을 전하였다.

136:3.7 (1514.1) 이러한 고립된 40일 동안 내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를 찾아 다녔다. 그들은 예수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여러 번 왔었지만, 그를 찾지 못하였다.

제 4 장. 대중을 위한 일에 대한 계획

136:4.1 (1514.2) 날마다 언덕에서, 예수는 자신의 유란시아 증여의 나머지 기간을 위한 계획들을 세웠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는 요한과 같은 시기에 가르침을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요한이 그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가 갑자기 구속되는 불상사로 중단하게 되기 전까지는, 대체로 물려서 있을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예수는, 요한의 그 두려움 없는 막무가내의 설교는 곧 적과 시민 통치자들의 두려움과 반감을 유발시키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요한의 불확실한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는 자기의 민족과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광대한 우주를 망라하여 거주민이 사는 모든 세상들을 위하여, 대중을 위한 수고의 과정을 분명하게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미가엘의 필사자증여는 유란시아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증여는 네바돈의 모든 세상을 위한 것이었다.

136:4.2 (1514.3) 요한의 행동에 맞추어서 자신의 행로를 조화-협동하는 대체적인 계획을 고려한 후에, 예수가 첫 번째로 한 일은 임마누엘의 지시들을 마음속에서 다시 살피보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임무 이행의 방법들에 관한 것들과 그 행성에 그의 어떤 영구한 필체도 남기지 말라는 조언을 다시 조심스럽게 잘 생각해 보았다. 모래 위를 제외하고는, 예수는 결코 다시는 어떤 것에도 글을 쓰지 않았다. 그 다음에 나사렛을 방문하였을 때, 예수는 목판에 써서 목공소 주위에 걸려 있는 글씨들과 그의 고향집 벽에

걸려있던 자신의 글씨들의 흔적을 모두 없애버렸는데, 그 일은 그의 동생 요셉을 매우 슬프게 만들었다. 그리고 예수는 자신이 당면하여야 할 세상에 대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태도에 관한 임마누엘의 조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136:4.3 (1514.4) 예수는 이 40일의 고립 기간 동안 금식하지 않았다. 음식을 먹지 않고 지낸 가장 긴 기간은, 언덕에서 그가 너무 생각에 골몰한 나머지 먹는 것조차 잊었던, 첫 2일 간이었다. 그러나 셋째 날에는 음식을 찾으러 나갔다. 이 기간 동안에, 그는 이 세상 혹은 어떤 다른 세상의 반역적인 어떤 악의 영들이나 혹은 반역적인 개인성들에 의해 유혹 받은 적이 없었다.

136:4.4 (1514.5) 이 40일 기간은, 인간적이고 그리고 신성한 마음들 사이에 최종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시기였거나, 아니면 오히려 두 마음들이 이제 하나로 연관되어 이룩한 최초의 실제 활동이라 할 수 있었다. 이 결정적인 명상의 기간의 결과들은 결국 신성한 마음이 의기양양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인간의 지성을 지배하여 왔음을 실증하였다. 사람의 마음은 이 시간부터 하느님의

마음으로 되었으며, 비록 사람 마음의 자아신분이 언제나 존재해 있었지만, 영성화된 이 사람 마음은 항상,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136:4.5 (1514.6)} 이러한 사건 많은 시기의 활동행위들은 굶주리고 허약해진 마음이 공상적인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광야에서의 예수의 시험”이라는 나중에 붙여진 기록처럼 혼란되고 미숙한 상징주의적인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이것은 전체적으로 획기적이고 다양한 유란시아 증여의 생애를 숙고해 보고, 또한 이 세상에서 최선의 봉사가 되며, 한편으로는 반역으로 고립된 모든 구체들의 개선에 헌신하려는 미래의 사명활동에 대한 계획들을 신중하게 수립하는 기간이었다. 예수는 안돈과 폰타의 시대부터 아담의 불이행을 거쳐 살렘의 멜기세덱의 사명활동 시기까지 이르는 유란시아의 인간 일생의 전체 여정을 두루 살펴보셨다.

^{136:4.6 (1514.7)} 가브리엘은 그가 유란시아에 한동안 더 머물기를 선택할 경우에는, 그에게는 자신을 세상에 현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예수께 상기시켰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선택은 그의 우주 주권이나

혹은 루시퍼 반역의 종결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예수께 분명하게 알렸다. 이 세상 사명활동에서의 두 가지 방법들이란:

136:4.7 (1515.1) 1. 그 자신의 방법—이 세상의 즉각적인 필요성들에 대한 입장에서 그리고 자신의 우주에서의 당면한 계발(啓發)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적당하고 이익을 끼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방법.

136:4.8 (1515.2) 2. 아버지의 방법—우주들의 우주에 대한 파라다이스 관리-행정에 있는 높은 개인성들에 의해 구상되어진 창조체 일생의 이상(理想)을 널리 알게 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

136:4.9 (1515.3) 그래서 예수에게는 자신의 나머지 지상 일생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당장의 경우에 비추어서 간주해 볼 때, 이들 각각의 방법은 그 나름대로 어떤 좋은 점이 있었다. 사람의 아들은 행위성에서의 이 두 가지 방법들 중에서 자신이 취한 선택은 이미 자신의 우주 주권 수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으며; 그 문제는 이미 해결을 보았고 그리고 우주들의 우주에서 기록으로

날인(捺印)되어서 단지 그가 직접 요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가 항상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이 세상에서의 이러한 육신화를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생애의 마지막도 그렇게 고귀하게 완결되도록 맞춰보아야만 한다면, 그의 파라다이스 형제인 임마누엘에게 큰 만족을 잘 제공하리라는 것이 예수께 전달되었다. 이 고립 기간의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는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남은 생애를 그 세상으로 돌아가서 완결할 것과 이 경우에 관계하는 두 가지 길에서, 항상 아버지의 뜻을 선택할 것을 자신에게 약속하였다. 그리고 그는 나머지 일생 동안에 항상 이 결심에 충실하게 사셨다. 쓰라린 마지막까지도 그는 변함없이 그의 뜻을 아버지의 뜻 아래로 종속시켰다.

136:4.10 (1515.4) 험악한 산 속에서의 40일은, 큰 시험을 받은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주(主)께서 위대한 결정들을 내리는 시기였다. 자기 자신과의 홀로 가지는 교통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직접 현존—개인성구현된 조절자 (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세라핌천사 보호자를 가지지 않았다)—와의 홀로 가지는 교통을 나누는 나날 동안에, 그는 자신의 나머지 지상 생애를 위한 정책과 행위들을

통제하게 될 큰 결정들에 하나씩 도달하였다. 헤르몬 산에서 있었던 갈등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혼동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모든 위대한 선지자와 인간 영도자들이 그들의 공생애를 이러한 기대된 금식과 기도의 기간을 거쳐서 시작했던 사실들 때문에, 큰 시험이 있었다는 후세의 전통이 이 고립의 기간에 덧붙여졌다. 새롭거나 심각한 어떤 결정이 앞에 놓였을 때, 아버지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영과의 교제를 위하여 조용히 물러나 있는 것은, 예수가 항상 해오던 실천 관행이었다.

136:4.11 (1515.5) 나머지 지상 일생을 위한 모든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예수는 행위성에서의 이 두 가지의 상반되는 과정들로 인해 항상 가슴이 아프셨다:

136:4.12 (1515.6) 1. 그는 그의 사람들—그리고 온 세상—이 그를 믿고 그의 새로운 영적 왕국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싶은 강한 바람이 생겼다. 그리고 그는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관념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136:4.13 (1515.7) 2. 그의 아버지가 승인하는 삶을 살며 일을 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다른 세상들을 위하여 그의 일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그 왕국을 설립함으로써 아버지를

게시하며 그분의 신성한 성격인 사랑을 보여주는 일을 계속하는 것.

136:4.14 (1515.8) 이러한 사건 많은 날들 내내, 예수는 언젠가 바이트 아디스라고 불리던 마을에서 가까운 언덕에 위치한 오래된 은신처인 바위 동굴에서 지냈다. 그는 이 바위 동굴 가까이에 있는 언덕 옆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샘에서 물을 마셨다.

제 5 장. 첫 번째의 중대한 결정

136:5.1 (1516.1) 자기 자신과 그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와의 협의가 시작된 지 3일째 되는 날, 사랑하는 주권자의 뜻을 받드는 그들의 사령관이 보낸 네바돈의 천상의 무리가 집합되어있는 환영(幻影)이 예수에게 보였다. 이 강력한 무리는 12 군단의 세라핌천사들과, 우주의 각 계층들로부터 온 균등한 숫자의 지능존재들을 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의 고립기간 중의 첫 번째 중대한 결정은, 그가 자신의 유란시아에서의 대중을 위한 일에 따르는 예정에 관련하여 이들 강력한 개인성들의 힘을 유용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였다.

136:5.2 (1516.2) 예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아버지의 뜻임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이 광대한 집단의 한 개인성도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군단은 항상 그들의 주권자의 한 마디 명령이라도 즉각적으로 복종할 준비를 갖추고서, 그의 지상 일생의 나머지 기간 동안 내내 남아있었다. 비록 예수가 자신의 인간 눈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개인성들을 항상 볼 수는 없었지만,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개인성구현된 조절자가 그들 전부를 항상 볼 수 있었고 그들과 교통할 수 있었다.

136:5.3 (1516.3) 언덕에서의 40일 동안의 은거생활로부터 내려오기 전에, 예수는 이러한 대기 중인 우주 개인성들에 대한 직접 지휘를, 자신의 최근에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에게 맡겼으며, 유란시아 시간으로 4년 이상 동안 우주 지능의 모든 부서로부터 온 선택된 이 개인성들은 복종적으로 그리고 존중심을 가지고 이 고양되고 체험 있는 개인성구현된 신비 감시자의 현명한 지도 아래에서 활동하였다. 이 강력한 군단의 지휘를 맡으면서, 이전에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분신이었으며 핵심이었던 조절자가, 아버지께서 그러한 개입을 원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라도, 이들 초인간적 대리자들이 그의 지상 생애와 관련되어서나 혹은 그것을 위하는 일에 자신들을 현시하는 것이 금지될 것임을 예수께 약속하였다.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내림으로 인하여, 아들의 지상 수고들 중에서 특정한 행동이나 에피소드에서 아버지께서 특별히 개입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예수는 그의 나머지 필사자생애와 관련된 문제들에서 모든 초인간적인 협조를 자발적으로 배제하였다.

136:5.4 (1516.4) 그리스도 미가엘을 시종드는 우주군단들에 대한 이러한 지도권을 받아들이면서, 개인성구현된 조절자가, 그러한 우주 창조체들의 집단이 그들의 창조자의 위임된 권한에 의해서 공간 활동에는 제한되어질 수 있지만, 시간에 관계되는 그들의 작용에서는, 그로서는 그렇게 똑같은 제한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예수에게 매우 강조하면서 그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일단 조절자들이 개인성구현되어지면 그들이 비(非)시간 존재가 된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조절자가 그의 지도 아래에 놓인 살아있는 지능체들의 통제에 있어서, 공간을 포함하는 모든 문제들의 경우에는 완벽하고도 완전하게 할 수 있었지만, 시간에 관한

것에서는 그러한 완전한 제한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는 조절자로부터 경고 받았다. 조절자가 이렇게
말하였다: “너의 지도대로 나는 여기 시중드는 우주 지능의
무리가 너의 지상임무에 관계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봉사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그러나 파라다이스
아버지께서 네가 선택한 그의 신성한 뜻이 성취될 수도
있는 그러한 대리자들을 풀어놓으라고 그가 나에게
지도하는 경우, 그리고 또한 지상의 자연 질서로부터 오직
시간에 대한 것으로서, 이탈되는 것만이 포함되어질 너의
신성의-인간의 의지의 선택이나 행동을 네가
떠맡아야할지 모를 경우에는 예외가 될 것이다. 모든
그러한 사건에서는, 내가 무력하고, 그리고 힘의 완전함과
합일 안에 여기에 모여 있는 너의 창조체들도 마찬가지로
아무 것도 어찌할 수 없다. 만약 너의 연합된 본성들이 일단
그러한 소망을 품는다면, 선택한 이들 명령은 당장 집행될
것이다. 모든 그러한 문제에서, 너의 소망은 시간의 단축을
구성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투사된 일은 실존적 이다. 나의
지도 아래에서는, 이것이 너의 잠재 주권에 부여할 수 있는,
가능한 제한의 전부이다. 나의 자아-의식에서는, 시간이

비(非)실존이며, 따라서 거기에 관계되는 그 어떤 것에서도 나는 너의 창조체들을 제한할 수 없다.”

136:5.5 (1517.1) 그리하여 예수는 사람들 안에서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에 관한 자신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수반할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단 한 번의 결정으로, 그는 시간에 관한 문제만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추구하려는 대중을 위한 사명활동에서 다양한 지능존재들 무리의 참여를 배제하였다. 따라서 예수의 사명활동 중에서 가능하였던 초자연적이거나 초인간적 업적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닌 한, 전적으로 시간요소의 제거에 관계된 것임이 명백해졌다. 예수의 남겨진 땅에서의 수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떤 기적, 자비로운 사명활동, 또는 다른 어떤 가능성 있는 사건들은, 분명하게 여기에 서술한 시간문제를 제외하고는, 그가 유란시아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관련사에서 확립되어 있고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행동의 성격이나 본성이 도무지 없었다. 물론 “아버지의 뜻”을 현시활동하는 일에서는 아무 제한도 있을 수 없었다. 우주의 이 잠재적 주권자가 밖으로 표현한 소망과 관련하여 시간 단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의 단축이나 제거를 금지한다는 이 하느님-사람의 의지의 직접적이고도 뚜렷한 행동에 의해서, 시간에 대한 영향이 의심되어지는 행동이나 사건과 관계되어진 일을 피하는 것이었다. 명백한 시간적인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수는 끊임없이 시간을 의식하며 지내야만 하였다. 그의 편에서 그 어떤 시간 의식의 벗어남이, 분명한 소망을 품는 것과 접촉된다면, 그것은 이 창조자 아들의 마음속에서 착상된 것이 집행되는 것, 그리고 시간의 간섭 없이 그렇게 되는 것과 동등한 것이었다.

^{136:5.6 (1517.2)} 그의 연관되고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의 감시하는 통제를 통하여, 미가엘은 공간과 연관되는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개인적 활동들을 완전하게 제한하실 수 있었지만, 사람의 아들에게 있어서 시간과 관련될 때에는 잠정적인 네바돈 주권자로서의 자신의 새로운 지상(地上)의 지위를 그렇게 제한하실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유란시아에서의 그의 대중을 위한 사명활동을 시작하려고 나섰을 때, 나사렛 예수의 실재 지위였다.

제 6 장. 두 번째 결정

예수는 자신의 새로운 신성의 지위에 선천적으로 잠재된 관점에서 결정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가 창조한 지능존재들의 모든 등급의 모든 개인성에 관련한 자신의 방침을 정하게 되자, 이제 그의 생각을 그 자신에게로 돌렸다. 그가 자신이 이 우주 안에 실존하는 모든 만물과 존재의 창조자임을 충분히 자아-의식하는 지금, 이들 창조자 특권과 함께 되풀이되는 일생의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가 사람들에게로 그의 임무를 시작하려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즉시 부딪치는 삶의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그가 머물고 있던 그 외로운 언덕에서 음식을 구하는 데에서 벌써 이 점이 문제되었다. 외로운 명상이 3일째 되던 날, 그의 인간 육신은 점점 배고프게 되었다. 그가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음식을 구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정상적인 창조적 힘을 발휘하고 적당한 몸의 영양분을 즉시 쓸 수 있도록 산출할 것인가? 이러한 주(主)의 중대한 결정이 너희들에게는 유혹—가상되어진 적들이 “이 돌로 하여금 빵으로 변하게 명령하라고” 도전했다고—으로 묘사되어졌다.

136:6.2 (1518.1) 예수는 그렇게 해서 나머지 지상 임무에 대한 다른 하나의 일관된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 자신의 개인적 필요성에 관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개인성들과의 그의 관계에서까지도, 이제 그는 이 세상의 정상적인 실존으로서의 길을 신중하게 추구였으며; 자신이 세운 자연 법칙을 초월하거나 위배하거나 어기는 정책은 피하기로 분명하게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가 이미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에 의하여 경고 받았던 바와 같이, 특정한 환경에서도 이러한 자연적인 법칙이 매우 가속(加速)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자신에게 약속할 수는 없었다. 원칙적으로, 예수는 자신의 필생의 사업은 자연적인 법에 따르고 현재 존재하는 사회적 조직에 조화를 이루면서 조직되어지고 실행되어질 것을 결정하였다. 주(主)는 거기에서 기적이나 경이로움 없이 결정되는 삶의 경로를 선택하였다. 다시 한 번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결정을 하였다;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자신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손에 맡겼다.

136:6.3 (1518.2) 예수의 인간 본성은 첫 번째 의무가 자아-보존이라고 규정하였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세상들에 사는 자연적인 사람의 정상적인 태도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유란시아 필사자의 당연한 반응이다. 그러나 예수는 단지 이 세상과 그곳의 창조체들에만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광대하게 퍼져있는 우주의 가지각색의 창조체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도록 계획된 일생을 사셨다.

136:6.4 (1518.3) 세례를 받음으로써 명백하게 되기 전에도,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인도에 완전한 복종으로 살아왔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필사가가 기대는 그러한 절대적 의존을 계속하기로 단호하게 결정하였다. 그는 부자연스러운 과정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다—자아-보존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 방침을 추구하기로 선택하였다. 그는 자신이 내리신 결론들을 성서에 있는 말들으로써 그의 인간 마음속에 이렇게 구체화시켰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배고플 때 음식을 구하는 것과 같은 육체적 성질의 식욕에 관해서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면서, 이제 사람의 아들은 모든 다른 육체적 욕구나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충동들에 관하여 최종적인 선언을 하였다.

136:6.5 (1518.4)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초인간적인 힘을 쓸 수도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로 쓰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방침을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지켰으며, 그 때 그를 조롱하여 말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였다—왜냐하면 그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36:6.6 (1518.5) 유대인들은, 사막에서 돌로부터 물을 끌어내고,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의 선조들을 먹여 살린 모세보다도 더 큰 이적을 베풀 메시아를 기대하였다. 예수는 자기 민족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어떤 종류인지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들의 가장 낙관적인 기대들을 채워줄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특권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한 능력과 영광으로 빛나는 그러한 과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수는 그들이 기대하는 기적을 행하는 것은 옛날의 무지한 마술이나 미개한 주술사의 실천 관행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아마도, 자기 창조체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가 자연의 법을 가속시키실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법을 초월하거나, 자신의 이익이나 동료 사람들을 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려 하였다. 그리고 주(主)의 이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었다.

^{136:6.7 (1518.6)} 예수는 자신의 백성들을 가엾게 여겼으며; 그는 그들이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기대, 그가 올 때 “세상은 그의 열매를 1만 배 이상 수확할 것이며, 한 넝쿨에는 1천 개의 송이들이 있을 것이며, 각각의 송이는 1천 개의 포도를 맺을 것이며, 각각의 포도는 1갤런의 포도주를 생산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되었는지를 잘 납득하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풍성한 기적의 시대를 열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히브리인들은 기적에 대한 전통들과 경이로움에 대한 전설들에 오랫동안 젖어왔었다.

^{136:6.8 (1519.1)} 그는 빵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해주려고 오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현세의 필요만을 충족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었다; 하늘에 계신 자기 아버지를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나타내 주기 위하여 왔고,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진지한 노력에 그와 함께 참여하도록 인도하기를 꾀하였다.

136:6.9 (1519.2) 이러한 결정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는 순전히 개인적 움대함을 위해서 또는 순전히 이기적인 이익과 영광을 위하여 신성한 재능이나 하느님이-주신 능력을 팔아넘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죄를 짓는 것임을, 바라보고 있는 우주에게 나타내 주었다. 그것이 바로 루시퍼와 칼리가스티아의 죄였다.

136:6.10 (1519.3) 예수의 이러한 위대한 결정은, 이기적인 충족과 감성적인 희열이 그 자체만으로는 진화하는 인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진리를 극적으로 묘사해 주었다. 필사자 실존에서 좀 더 높은 가치들—지적인 통달과 영적 성취—이 있으며, 그것들은 사람의 순수하게 육체적인 욕구와 강한 충동에서의 필요한 만족을 훨씬 더 능가하는 것이다. 사람의 재능에서의 본능적 자질과 힘은, 자신의 더 높은 마음과 영의 힘의 발전과 고결함을 위하여 그 대부분을 헌신해야만 한다.

136:6.11 (1519.4) 그렇게 하여 예수는, 공간의 세상들에서 좀 더 높은 생의 가치들과 진화하는 인간 실존의 좀 더 깊은 영적 만족이라는 새롭고 나은 길로 가는 기법을 자기 우주의 창조체들에게 계시해 주었던 것이다.

제 7 장. 세 번째 결정

136:7.1 (1519.5) 자기 자신과 연관-동료 인간들의 건강관리로서의 물질적인 육신의 필요에 대한 음식과 육체적 보살핌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자, 그에게는 아직도 또 다른 하나의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었다. 개인적 위험에 당면하였을 때,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할까? 그는 자신의 육신의 생애에서 뜻밖의 종말을 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간적인 안전함에 대해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여서 거기에 알맞은 조심을 하되, 육신상의 비상사태를 만났을 경우에, 모든 초인간적인 개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가 이러한 결정을 구체화시키고 있을 때, 예수는 바로 그의 앞에는 낭떠러지가 있는 앞으로 좀 튀어나온 바위 위에서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계셨다. 그는 튀어나온 그 바위에서 자신이 공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았다, 유란시아에서 자신의 삶의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만약에 자기가 천상의 지능체들의 중재를 개입시키지 않겠다는 자신의 첫 번째 중대한 결정과 자아-보존을 향한 그의 태도에 관련된 자신의 두 번째 결정을

폐지시킨다면, 자기에게는 아무 위험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

136:7.2 (1519.6) 예수는 자기 민족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는 다음과 같은 성서 문장을 매우 잘 알고 계셨다: “너에게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역병(疫病)도 네가 거주하는 곳 가까이에 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너의 모든 길들을 지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줄 것이다.” 그의 아버지의 종력의 법칙에 대한 도전이 되는 이런 종류의 가정(假定)은,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그를 방어하기 위하여, 또는 잘못 가르쳐지고 잘못 길을 들어간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라면,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러한 과정은, 표적을 찾는 유대인들을 아무리 만족시켰다고 하더라도, 그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는 길은 아닐 것이며 단지 우주들의 우주에 설립되어 있는 법칙들을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낳을 뿐일 것이다.

136:7.3 (1519.7)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주(主)는 자신의 개인적 행위에 관해서는 자신이 세운 자연법칙을 무시하며 일하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을 납득한다면, 너희는 그가 절대로 물위를 걸어 다니신 적이 없었고, 세상을 관리-운영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물질 계층에 위반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의 관할 아래에 놓인 문제와 관련하여 시간 요소에 대한 통제력의 부족에서 전반적으로 벗어나는 아무런 방법을 아직까지 전혀 찾을 수 없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136:7.4 (1520.1) 예수는 자신의 지상 일생 내내, 끊임없이 이 결정에 충실하였다.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하거나, 갈보리에서 감시자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소하였을 때까지도, 그는 그 언덕에서 이 시간에 내렸던 결정을 꾸준히 지켜나가셨다.

제 8 장. 네 번째 결정

136:8.1 (1520.2) 이 하느님-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고심하면서 결정해야 할 바로 다음의 큰 문제는, 그가 자기 동료 인간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을 가깝게

끌어들이게 하는 목적으로 자신의 초인간적인 능력을 조금이라도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질문이었다. 그는 웅장함과 경탄을 열망하는 유대인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의 우주적인 능력을 사용할 것인가? 그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하는 방법으로서 모든 그러한 실천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중대한 결정을 일관하게 지켜나가셨다. 시간을 단축시키는 자비의 사명활동의 현시활동을 그가 여러 번 허락하였을 때조차도, 그의 치료하는 사명활동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이 받아들인 혜택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거의 변함없이 타일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고 실증하는 “표적을 보이라”는 적의 비웃으며 하는 도전을 항상 거절하였다.

136:8.2 (1520.3) 예수는, 기적들을 행하는 것과 경이로움을 실행하는 것이 오직 물질적 마음을 장악하는 겉으로 만의 충성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매우 현명하게 예견하였다; 그러한 행위들은 하느님을 나타내 보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거절하였다. 그는 단 한가지의
임무—하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만 매진하기로
결심하였다.

136:8.3 (1520.4) **예수가 자기 자신과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모든
중대한 대화들을 하는 동안 내내, 의문을 던지고 거의
의심까지 하고 있는 인간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는 하느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면,
유대인들이 그를 절대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게다가, 만약 그가 단지
한 번이라도 비자연적인 일의 실행을 허락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성한 마음에 대한 비굴함이라는 것을 그의 인간
마음이 확실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신성한 마음이 의심을
품은 인간 마음에게 이러한 특전을 베푸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는 것일까? 예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였으며, 단지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의 현존만으로도
신성과 인간성과의 협력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결정하였다.**

136:8.4 (1520.5)

예수는 이미 많은 여행을 하였으므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마스커스를 회상하였다. 그는 세상의 방법들—사람들이 정치를 통하여 어떻게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그리고 타협과 외교술로 교역을 하는지—을 잘 알고 계셨다. 그는 자신의 지상임무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이 지식을 이용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왕국의 설립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와의 모든 타협과 부자들의 영향력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쪽으로 다시 한 번 결정하였다.

136:8.5 (1520.6)

예수는 자신의 힘들의 하나로 열려있는 지름길을 잘 알고 계셨다. 그는 국가와 온 세상의 관심을 즉각적으로 자신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많은 길들을 알고 계셨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의 축하가 곧 있을 것이다; 그 도시는 방문객들로 넘칠 것이다. 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경이에 찬 군중들 앞에서 하늘 위를 걸을 수도 있었다; 그것이 그들이 찾고 있는 종류의 메시아였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그들을 실망시키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는 다윗의 왕좌를 다시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자연스럽고 속도가 느리지만 확실한 그 길을 앞질러
가려고 하였던 칼리가스티아가 저지른 어리석음을 알고
계셨다. 다시 한 번 사람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인 아버지의
방법에 복종하기로 하였다.

136:8.6 (1521.1) 예수는 인류의 가슴속에 하늘의 왕국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따라오게 될 자신의 지상 자녀들이
하늘왕국을 키우고 확대해나가는 일 속에서 겪어야만
하는 것과 똑같이, 자연스럽고, 일반적이고, 어렵고, 고된
방법들을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은, “많은
환난을 겪음으로써 모든 세대의 많은 자들이 왕국에
들어갈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예수는 이제
힘을 소유한 자로서, 그것을 순전히 이기적이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끊임없이 거절하는, 교화된
사람으로서의 큰 시험을 체험하고 계셨다.

136:8.7 (1521.2) 사람의 아들의 일생과 체험을 고려함에 있어서,
너희는 하느님의 아들이 20세기나 혹은 다른 세기의
인간이 아닌, 1세기의 필사자 마음을 가지고 육신화
되었다는 점을 항상 상기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관념은, 예수의 인간 자질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성취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요소들과 그의 훈련과 교육의 영향에 의해 빚어진, 그 시대의 산물이었다. 그의 인간성은 그 당시, 그 세대의 실재적인 지적 지위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조건들에 그 기반을 두고 전적으로 양육되어진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반면에, 이 하느님-사람의 체험에 있어서는, 신성한 마음이 사람의 지성을 초월할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간 마음이 작용할 때에는, 마치 순수한 인간 마음이 당시의 인간들의 환경조건 아래에서 하는 것처럼 작용하였다.

136:8.8 (1521.3) 예수는, 도덕적 가치들을 강화하거나 혹은 영적 발전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례적인 힘이나 혹은 독단적인 권한에 탐닉하는 행위의 어리석음 또는, 독단적인 힘을 나타낼 목적으로 인위적인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행위의 어리석음을, 자신의 광대한 우주의 모든 세상들에게 나타내셨다. 예수는 땅에서의 자신의 임무가, 마카비 가(家)의 통치에서 보여준 실망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자신의 신성한 속성들을 정당하지 않은 인기나 정치적 명성을 얻는

목적으로 오용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는 신성하고 그리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민족적 힘이나 국제적 명성으로 위신으로 으로 변환되는 것을 묵인하려 하지 않았다. 나사렛 예수는 죄와 타협하는 것은 물론, 악과 타협하는 것에도 거부하였다. 주(主)는 승리감에 넘쳐서 아버지의 뜻에 충성을 하는 것을 땅에서 그리고 현세적으로 고려해야 할 모든 다른 것보다 위에 올려놓았다.

제 9 장. 다섯 번째 결정

^{136:9.1 (1521.4)} 자연 법칙과 영적 힘에 대한 그의 개별적인 관계에 적합하도록 정책적인 문제들을 결정한 후, 그는 이제 하느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설립하는데 있어서 사용되어질 방법들의 선택 쪽으로 자신의 관심을 돌리셨다. 요한은 이미 이 일을 시작하였다;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 전달을 계속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요한의 사명을 넘겨받을 것인가? 그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효력적인 노력과 지능적인 협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을 짜야만 할 것인가? 예수는 이제 자신을 유대인의 메시아로, 적어도 그 당시에 인기를 가지고 있던 그런 메시아로 더 이상 간주하지 않으려는, 최종적인 결정에 도달하였다.

136:9.2 (1522.1) 유대인들은 해방자를, 기적의 힘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적들을 쳐부수고, 유대인들을 세상의 통치자들로 만들어 주며, 빈곤과 억압에서 해방시켜주는 자로 마음속에 그려왔다. 예수는 이런 희망은 결코 실현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하늘의 왕국은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악을 버리는 일이며, 그것은 순수하게 영적 문제에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는 찬란한 능력의 전시효과를 수반한 영적 왕국의 취임식에 대한 대안—그러한 일정은 허락될 것이며 전적으로 미가엘의 관할권 안에 있었다—도 생각해 보셨지만, 그는 그러한 계획을 충분히 배제해버리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셨다. 그는 칼리가스티아의 혁명적인 기법들과 타협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잠재적으로 세상을 얻었었고, 자신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그의 끝도 그렇게 사람의 아들로써 완결할 것을 계획하였다.

136:9.3 (1522.2) 하늘과 이 세상에서 모든 힘을 잠재적으로 소유하는 이 하느님-사람이 기적을 사용한 무력적인 전쟁을 통하여 한 때 주권자의 깃발을 휘날렸더라면, 유란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는지 너희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 하느님께 대한 경배가 그것으로부터 유래된다고 가정되었을지도 모를 악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고자 하였다. 그는 자신을 주시하고 있던 우주에게, “너희는 너희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만을 섬겨야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자 하였다.

136:9.4 (1522.3) 여러 날이 지나가면서, 예수는 자기가 어떤 종류의 진리-게시자가 될 것인지를 언제까지나-증가하는 명백함으로 알아 차리셨다. 그는 하느님의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식별하셨다. 인간 체험에 있어서 자신의 나머지 잔은 더욱 쓴맛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으나, 그는 그 잔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136:9.5 (1522.4) 그의 인간 마음까지도 다윗의 왕좌에게는 이제 작별을 고하였다. 이 인간 마음은 신성(神性)의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갔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영원하고 신성한 뜻을 행하는 데에 분별불가적으로 복종하면서, 인간 마음은 계속 질문하지만, 세상에서 사람으로 사는 이 삶의

병합된 일생 안에서, 신성한 대답들을 어김없이 최종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였다.

136:9.6 (1522.5) 로마는 서방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의 지휘 아래 천사군단을 거느리고 이제 고립된 속에서 이러한 중대한 결정들을 성취한 사람의 아들은, 세상 영토를 얻을 수 있는 유대인의 마지막 기회를 나타내셨다; 그러한 굉장한 지혜와 힘을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신 이 유대인은 그의 우주적 자질들을 자신의 웅대함이나 자기 민족의 왕권을 위해 사용할 것을 거부하였다. 그는 “이 세상의 왕국들”을 있던 그대로 보셨으며,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셨다.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은 이 모든 힘을 이미 그의 손에 넘겨주었으나, 그는 그것들을 원하지 않았다. 이 세상의 왕국들은 우주의 창조자이며 통치자이신 그의 관심을 끝만큼 가치가 있는 것들이 못되었다. 그에게는 인류의 가슴속에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통치하는 왕국을 설립하는 일, 사람들에게 좀 더 깊은 계시를 해주려는 오로지 한가지의 목적이 있을 뿐이었다.

136:9.7 (1522.6) 전쟁, 다툼, 살육이라는 관념은 예수의 비위에 거슬리는 것이었다; 그 어느 것도 채택하지 않았다. 그는 하느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평화의 영주로 세상에 나타나고자 하였다.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그는 로마의 억압에 대항하는 반란에서 그들을 이끌어 달라는 유대 열심당들의 청을 다시 한 번 거절하였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쳤던 다음과 같은 성서의 구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하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의 상속으로 이방인들을 줄 것이며 너의 소유로 세상의 끝까지 주겠다. 너희는 그들을 철로 된 막대기로 쳐부술 것이며 그들을 도공의 그릇처럼 산산 조각을 낼 것이다.’”

136:9.8 (1522.7) 나사렛 예수는 그러한 말들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셨다. 마침내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람의 아들의 인간 마음은 이러한 모든 메시아적인 어려움들과 모순들—히브리 경전들, 부모의 가르침, 카잔의 가르침, 유대적 기대들, 인간 야망의 바램들—을 깨끗하게 쓸어버리셨으며; 단 한 번으로 자신의 경로를 결정하였다. 그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왕국의 선포를

조용하게 시작하실 것이며, 매일 매일의 과정의 세부적인 일들을 해나가는데 있어서는 자신의 아버지(개인성구현된 조절자)를 신뢰하기로 하였다.

136:9.9 (1523.1) 이러한 결정들에 의해서, 예수는, 영적 문제들을 입증하기 위하여 물질적인 시험들을 적용하기를 거절함으로써 그리고 그가 외람되게 자연의 법을 무시하기를 거절함으로써, 광대한 우주를 망라하여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본보기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그가 영적 영광의 서막으로 세속적인 힘을 갖기를 거절하였을 때, 그는 우주적 충성과 도덕적 고상함의 영감 어린 모범을 세우셨던 것이다.

136:9.10 (1523.2) 만약 사람의 아들이 자신의 세례 이후에 언덕으로 올라가셨을 때, 자신의 사명과 그것의 본질에 대하여 어떤 의심을 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40일간의 고립과 결정들 후에 동료 사람들에게 돌아온 그에게는 한 가닥의 어떤 의심도 남아 있지 않았다.

136:9.11 (1523.3) 예수는 아버지의 왕국 설립을 위한 계획을 구상하였다. 그는 사람들의 물리적 충족을 채우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로마에서 최근에 행해진

것을 목격하였던, 군중들에게 빵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실 것이다. 유대인들이 비록 그런 종류의 해방자를 기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기적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일은 하지 않으실 것이다. 정치적인 권한이나 속세의 힘을 보여줌으로 영적 메시지가 받아들여지기를 구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136:9.12 (1523.4) 기대에 찬 유대인들의 눈에 다가오는 왕국을 더욱 과장시키는 그러한 방법들을 거절하면서, 예수는 이들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모든 권한과 신성의 주장을 틀림없이 배척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계셨다. 예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초기 추종자들에게 그를 메시아로 암시하지 못하도록 오랫동안 애를 쓰셨던 것이다.

136:9.13 (1523.5) 그는 자신의 대중을 위한 사명활동을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발생하는 세 가지 상황들을 다루는 필연성에 직면하였는데: 먹을 것을 제공하라는 외침소리, 기적을 행하라는 주장,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허락하라는 요청이 그것들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페레아

언덕에서 그의 고립 기간 동안에 내린 이 결정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다.

제 10 장. 여섯 번째 결정

136:10.1 (1523.6) 이러한 기억할만한 고립의 마지막 날,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합류하러 산에서 내려가시기 전에, 사람의 아들은 그의 마지막 결정을 내리셨다. 그는 이 결정을 다음과 같은 말로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에게 통보하였다: “그리고 모든 다른 문제에서, 이제 이 여러 결정-기록에 쓰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나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할 것을 당신께 서약합니다.” 그렇게 말씀한 후에, 그는 산 아래로 내려가셨다. 그의 얼굴은 영적 승리와 도덕적 성취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제 137 편 갈릴리에서의 체류기간

137:0.1 (1524.1) 서기 26년 2월 23일 토요일 이른 아침, 예수는 펠라에서 야영을 하고 있던 요한의 무리들과 합류하기 위하여 산에서 내려왔다. 예수는 그날 내내 군중과 함께 지내셨다. 예수는 낙상을 입은 젊은이 하나를 도와주었고, 그 소년을 부모에게 안전하게 데려다주려고 가까이 있는 마을인 펠라로 여행하였다.

제 1 장. 첫 번째 네 명의 제자를 택함

137:1.1 (1524.2) 이 안식일 동안에 요한의 수제자(首弟子) 두 명이 예수와 시간을 많이 보냈다. 요한의 추종자들 중에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로부터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부상당한 소년을 데리고 펠라로 가는 여행길에 예수를 동행하였다. 요한에게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예수께 많은 질문을 하였으며, 그들 두 사람이 목적지에 거의 다다르기 바로 직전에 잠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멈추었을 때, 안드레가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당신이 가버나움에 오신 이래부터 당신을 계속 관찰해 왔고, 당신이 바로 그 새로운 선생님이신 것을 믿으며; 당신의 가르침을 다 납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당신을 따르기로 마음을 확실히 정하였다; 당신께 복종하면서 새로운 왕국에 대한 모든 진리를 배우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확신과 기쁜 가슴으로, 앞으로 자신과 함께 사람들 가슴속에 하느님 왕국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될 열 두 명 중에서 첫 번째 사도로 그를 받아들였다.

137:1.2 (1524.3) 안드레는 요한의 사명활동에 대하여 묵묵한 관찰자였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 그에게는

요한의 수제자(首弟子)로 있는, 아주 유능하고 적극적인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가 있었다. 그를 요한의 우두머리 지지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37:1.3 (1524.4) 예수와 안드레가 야영지로 돌아온 후, 안드레는 시몬을 찾아서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이 예수를 위대한 스승으로 받아들였으며,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그는 예수가 자신의 봉사에 대한 서약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여 말하면서, 시몬에게도 이 새로운 왕국의 일에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시몬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가 세베대의 가게에 일하러 왔을 때부터, 나는 그가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믿었지만, 요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그를 버리려고 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래서 그들은 곧 요한에게 그 문제를 의논하러 갔다. 요한은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두 충고자들을 잃는다는 생각으로 슬펐으나,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용감하게 대답하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나의 임무는 곧 끝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 안드레는 예수를 한쪽 옆으로 불러내어, 자기 동생도 역시 새로운 왕국의

일을 하는데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고 그에게 말씀드렸다. 시몬을 자신의 둘째 사도로 환영하면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시몬아, 너의 정열은 칭찬할 만하지만, 그것은 왕국의 일에서는 위험하다. 나는 네가 언행에 있어서 좀 더 사려 깊어지기를 바란다. 나는 네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고자 한다.”

137:1.4 (1525.1) 펠라에 사는 부상당한 소년의 부모가 그들의 집에서 그 날 밤을 머물러 쉬어가도록 예수께 간청하였고, 예수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안드레와 그의 동생으로부터 떠나시면서, “우리는 내일 아침 일찍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였다.

137:1.5 (1525.2) 예수가 그 날 밤을 지내려고 펠라로 돌아가신 후에, 안드레와 시몬이 다가올 왕국 설립에 있어서 자신들이 맡을 봉사의 본질에 대해 토론하고 있을 때, 동산에서 예수를 찾아 오랜 시간을 헤매다가 헛걸음을 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 도착하였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새로운 왕국의 첫 번째로 받아들여진 조연자들이 되었다는 것과 그들이 내일 예수와 함께

갈릴리로 떠날 예정이라는 것을 말해 주자, 야고보와 요한은 서글펐다. 그들은 오랫동안 예수를 알았고 그를 사랑하였다. 그들이 예수를 찾아 언덕 위에서 여러 날 헤매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자,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먼저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의 행방을 묻은 후에, 그를 찾아 서둘러 떠났다.

137:1.6 (1525.3) 그들이 예수의 거처에 도착했을 때에 그가 잠들어 있었지만, 그들은 그를 깨워서 말하였다: “당신과 그토록 오래 살았던 우리가 산에서 당신을 찾고 있었는데, 그동안 당신은 우리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 하며 안드레와 시몬을 새로운 왕국의 첫 번째 연관-동료로 선택하셨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슴을 진정시키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를 찾아 나서라고 누가 너희를 이끌었는가’를 생각해보아라.” 그들이 언덕에서 오랫동안 그를 찾아 다녔던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후에, 예수는 그들에게 덧붙여 말하였다: “너희는 언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가슴 속에 있는 새로운 왕국의 비밀을 찾아내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너희가 찾던 것은 이미 너희의 혼(魂)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너희는 진정 나의 형제—나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필요조차 없는 형제—들이고, 이미 왕국에 들어와 있었으니, 마땅히 기운을 내서 너희도 우리와 함께 갈릴리로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해라.” 그러자 요한은, “그러면 주(主)여, 야고보와 저도 안드레와 시몬처럼 당신의 새로운 왕국의 연관-동료가 되는 것입니까?”라고 대담하게 물었다. 그러자 예수는 그들 각각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이들 다른 사람들이 받아달라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왕국의 영 안에서 나와 함께 있었다. 나의 형제들인 너희는 왕국에 들어오기 위해 요청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맨 처음부터 나와 함께 왕국 안에 있어왔다.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너희의 앞을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 내 가슴속에서는 너희가 내게 청할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왕국 협의회 안에서 너희를 세고 있다. 그리고 좋은-의도였지만, 잃어버리지도 않은 사람을 찾아 나서려고 자아-임명한 과업에 몰두하여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도 첫 번째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다가오는 왕국에서는, 걱정을 키우는 그러한 일들에

마음을 쓰기 보다는, 오히려 모든 때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오직 너희 자신을 염려하라.”

137:1.7 (1525.4) 요한과 야고보는 그의 책망을 섰던 은혜 안에서 받아들였고, 안드레와 시몬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연관-동료 사도와 함께 다음날 아침 갈릴리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 이 날을 기점으로 하여, 예수의 충고자들로 뽑힌 사람들을, 훗날 그를 따르던 수많은 믿는 제자들의 무리들과 구별 짓기 위하여 사도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137:1.8 (1525.5) 그 날 깊은 밤에 야고보, 요한, 안드레, 시몬은 세례자 요한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 굳건한 유대 예언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자신의 수제자(首弟子) 두 사람을 다가오는 왕국의 갈릴리 영주의 사도로 넘겨줄 것을 침착한 음성으로 선언하였다.

제 2 장. 빌립과 나다니엘을 택함

137:2.1 (1526.1) 서기 26년 2월 24일 일요일 아침에, 예수는 세례자 요한과 펠라 근처의 강가에서 헤어졌으며, 그 이후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다시 서로 만나지 않았다.

예수와 그의 네 제자-사도가 갈릴리로 떠나던 그날, 요한의 추종자 무리들 속에서는 큰 동요가 일어났다. 첫 번째의 큰 분열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 전날에, 요한은 안드레와 예즈라에게 예수가 해방자라고 확실하게 선포하였다. 안드레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으나, 예즈라는 온화한-성품의 나사렛 목수를 받아들일 것을 거부하였는데, 그는 자기 연관-동료들에게 “선지자 다니엘은 사람의 아들이 권세와 큰 영광의 하늘 구름과 함께 올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갈릴리의 목수이자 가버나움에서 배를 만드는 이 사람은 그 해방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 하느님의 선물이 어떻게 나사렛으로부터 나올 수 있겠는가? 이 예수가 요한의 친족이고, 우리 선생님은 심성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속은 것이다. 이 가짜 메시아를 가까이 하지 말자.”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발언에 대하여 요한이 그를 꾸짖자, 그는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곧 남쪽으로 떠났다. 그리고 이 집단들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을 계속하였고, 결국에는 요한은 믿지만 예수를 거부하는 하나의 교파를 세웠다. 오늘날에도 이 집단들의 뿌리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남아있다.

137:2.3 (1526.3)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 예수와 그의 네 제자-사도들은 아무 탈 없이 갈릴리를 향해 가고 있었다. 나인을 지나 나사렛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길 앞쪽을 향해 바라보던 예수의 눈에 벳세다의 빌립이 친구와 함께 그들에게로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예수는 빌립과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또한 새로운 4명의 이 사도들도 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친구 나다니엘과 함께, 들려오는 하느님의 왕국에 대한 소식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요한을 방문하러 펠라로 가는 길이었으며, 예수를 만나자 매우 기뻐하였다. 빌립은 예수가 가버나움으로 처음 왔을 때부터 그를 탄복하는 자가 되었었다. 그러나 갈릴리의 가나에 살고 있던 나다니엘은 예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빌립은 그의 친구들을 맞으러 앞으로 나아갔고, 나다니엘은 길가에 있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137:2.4 (1526.4) 베드로는 빌립을 한 쪽으로 데리고 갔으며, 자신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의 새로운 왕국의 연관-동료가 되었다고 말해 주었으며, 빌립에게도 봉사를 자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빌립은 혼란 속에

빠졌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곳에서, 단 한 번의 예고도 없이—요단강가 노상(路上)에서—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즉석에서 결정해야만 하였다. 이 때 그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함께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 동안 예수는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으로 가는 여정의 대체적인 일정을 야고보에게 설명하고 계셨다. 마침내 안드레가 빌립에게, “선생님께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였다.

137:2.5 (1526.5) 빌립은 예수가 실제로 위대한 인물이고 아마도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으며, 이 일에 대해 예수의 결정을 따르기로 결심하였고, 곧장 예수께로 가서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제가 요한을 보러 길을 내려가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을 따르는 내 친구들과 같이 가야 합니까?” 예수는 “나를 따르라.”고 대답하였다. 빌립은 자기가 해방자를 찾았다는 확신으로 인해 감격하였다.

137:2.6 (1526.6) 아직도 뽕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 나다니엘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급히 그에게로 가면서, 빌립은 일행에게 그 자리에 그냥 남아있어 달라고

손짓으로 표시하였으며, 나다니엘은 세레자 요한과 도래할 왕국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 자기가 들어왔던 많은 것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고 있었는데, 빌립이 그의 명상을 방해하면서, “나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기록하고 요한이 선포하였던 해방자를 발견하였다.”라고 외쳤다. 나다니엘이 그를 쳐다보면서, “그 선생님은 어디서 오시는가?”라고 물었다. 그리고 빌립은, “그는 요셉의 아들인 목수인데, 최근에는 가버나움에 사셨던 나사렛의 예수이시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약간 놀란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빌립은 그의 팔을 끌면서, “가서 만나보자.”라고 말하였다.

137:2,7 (1527.1) 빌립이 나다니엘을 예수께로 데려갔으며, 그는 진정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자의 얼굴을 인자하게 들여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의 안에는 아무 거짓이 없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나다니엘은 빌립을 돌아보며, “네 말이 맞다. 그는 진정 사람들의 주(主)이시다. 나도 자격이 된다면, 따르겠다.”라고 말하였다. 예수는 나다니엘에게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다시 한 번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였다.

137:2.8 (1527.2) 이제 예수는 그의 가까운 측근이 될 앞날의 연관-동료들의 절반을 모았는데, 그들 중 다섯은 그가 얼마간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는 전혀 생소한 사람인 나다니엘이었다. 그들은 더 지체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나인 마을을 지나 그날 저녁 늦게 나사렛에 도착하였다.

137:2.9 (1527.3) 그들 모두는 예수가 소년시절을 지낸 집에서 요셉과 함께 그 날 밤을 지냈다. 예수의 연관-동료들은, 새로 만나게 된 자기들의 선생님이 집에 있는 십계명이나 다른 금언과 경구의 형태로 쓰인 자신의 필체의 흔적을 모두 없애는데 왜 그리도 신경을 쓰시는지 거의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그 이후로부터 그가 아무 곳에도 글씨를 쓰는 것을—먼지나 모래 위를 제외하고는—그들이 보지 못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들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제 3 장. 가버나움을 방문함

137:3.1 (1527.4) 그들 모두가 성읍에서 명성 있는 집안의 처녀의 결혼식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 예수는 사도들을 가나로 보내셨으며, 그 동안 그는 급히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어머니를 방문했는데, 가는 길에 동생 유다를 만나기 위해 막달라에 들르셨다.

137:3.2 (1527.5) 나사렛을 떠나기 전에, 예수의 새로운 연관-동료들은 요셉과 예수의 다른 가족들에게, 지난 얼마 동안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주었고, 예수야말로 자기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오던 해방자라는 자신들의 믿음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였다. 예수의 가족들은 이 일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요셉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마 결국 어머니가 옳았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이상한 형님이, 도래할 그 왕일지도 모른다.”

137:3.3 (1527.6) 유다는 예수가 세례 받으실 때 함께 있었으며, 그의 형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의 지상사명에 대한 굳건한 신봉자가 되었다. 비록 야고보와 유다 두 사람은 자기들의 형이 맡은 사명의 본질에 대해서 무척 혼란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들의 어머니는 다윗의 아들인 메시아로서의 예수에 대해 일찍이 자기가 기대하고 있던 희망을 되살려 내었으며 그들의 형이 이스라엘의 해방자임을 믿도록 자기 아들들을 부추겼다.

137:3.4 (1527.7) 예수는 월요일 밤에 가버나움에 도착하였으나, 야고보와 어머니가 살고 있던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세베대의 집으로 가셨다. 가버나움에 있던 그의 모든 친구들은 그에게 크고도 유쾌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다시 한 번 상당히 활기차 보였고, 초기 나사렛 시절의 그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다. 그의 세례와 고립 기간 그 직전과 그리고 직후의 몇 년 동안, 그는 점점 더 심각해졌었고 자아-억제적이었었다. 이제 그는 그들 모두에게 옛 모습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그의 주변에는 장엄한 모습이 보이고 고양되어진 측면이 있는 듯 하였지만, 그는 다시 명랑하였고 즐거워하였다.

137:3.5 (1528.1) 마리아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녀는 가브리엘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가까워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녀는 곧 자기 아들의 초자연적인 유대의 왕으로서의 기적 같은 계시에 모든 팔레스타인이 깜짝 놀라서 소스라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야고보, 유다, 세베대가 퍼붓는 많은 모든 질문에 대하여 예수는 단지 미소를 지으며,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당분간은 내가 여기 머무르는 것이 좋겠으며; 나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만 한다.”

137:3.6 (1527.9) 다음 날인 화요일, 그들 모두는 그 다음 날로 예정되었던 나오미의 결혼식(結婚式)에 참석하러 가나를 향하여 여행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시간이 올 때까지”는 자신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는 예수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해방자를 발견하였다는 소식을 은밀하게 널리 퍼뜨렸다. 그들 각자는, 예수가 메시아 능력의 장악을 다가올 가나의 결혼식에서 개시하실 것이며 대단한 권위와 숭고한 위엄으로 그 일을 진행하실 것이라고 확신 있게 기대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세례에서 일어났던 현상에 대해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의 땅에서의 다가올 과정에서는 많은 초자연적인 경이로운 현시활동과 기적적인 실증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온 시골 사람들은 나단의 아들인 요함과 나오미의 결혼식 피로연에 함께 모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137:3.7 (1527.10) 여러 해 동안, 마리아가 이렇게 즐거워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의 즉위식에 가는 황태후와 같은 기분으로 가나를 향해 여행하였다. 예수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열세 살 되던 해 이후로,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고 그의 주변의 사람들의 바램이나 희망에

사려 깊고 납득하고 진지하게 호의적으로 대하고, 그렇게 다정하게 동정심 가득한 그의 모습을 본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끼리 삼삼오오 짝을 지어 무슨 일이 일어날려는 지에 대해 속삭였다. 이 이상한 사람이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게 될까? 그는 다가올 왕국의 영광을 어떻게 예고할 것인가?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능력과 권세의 현시를 목격하는 현장에 참석할 것이라는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제 4 장. 가나의 결혼식

^{137:4.1 (1528.4)} 수요일 정오까지, 보통 결혼 잔치의 네 배가 넘는, 거의 천명이 되는 사람들이 가나에 도착하였다. 유대 관습에 의하면, 결혼식은 수요일에 행해졌고, 초청장은 결혼식보다 한 달 전에 보내졌다. 오전부터 오후의 이른 시간까지, 이것은 결혼식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예수와 공식 연회장처럼 보였다. 모든 사람들은, 거의 유명인사가 된 이 갈릴리 사람과 인사라도 나누고 싶어 하였는데, 예수는 젊은이와 노인, 유대인과 이교도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진심으로 대하였다. 그리고 결혼 예비 의식을 인도하는 것에 예수가 동의하자 모두 기쁨을 향유하였다.

137:4.2 (1528.5) 예수는 이제 자신의 인간 실존과, 신성한 인간-이전의 실존, 그리고 인간과 신성한 본성이 병합되고, 또는 융합된 지위를 속속들이 자아-의식하고 계셨다. 완전한 균형으로, 순간적으로 인간의 역할을 하거나, 또는 즉각적으로 신성한 본성의 개인적 특권을 취하실 수 있었다.

137:4.3 (1528.6) 그 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예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기적을 기대한다는 점을 점점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더구나 특히 자신의 가족과 여섯 제자-사도들까지도 어떤 놀랄만하고 초자연적인 현시활동으로 다가올 왕국을 그가 적절하게 발표하도록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37:4.4 (1529.1) 오후 일찍, 마리아는 야고보를 불러 함께 예수께로 가서, 결혼 예식의 어떤 시간과 어떤 시점에 자신의 "초자연적인 존재"를 현시하려는 지에 대한 그의 계획을, 자기들을 믿고 미리 알려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것을 예수에게 언급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그의 특유의 분개를 일으키게 했음을 알았다. 그는 오직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냥 가만히 내 옆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얼굴 표정에는 그의 책망이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137:4.5 (1529.2) 자기 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인간 예수에게 큰 실망을 주었으며, 그의 신성을 외부로 실증하라는 그녀의 권유적인 제안에 대하여 자신의 반응한 것을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런 일이야말로 최근에 그가 언덕에서 홀로 있는 동안,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로 그러한 것들 중의 하나였다. 몇 시간 동안 마리아는 몹시 풀이 죽어 있었다. 그녀는 야고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난 그를 납득할 수 없으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의 이상한 행위는 언제나 끝날 것인가?” 야고보와 유다는 그의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애썼고, 한편 예수는 한동안 홀로 있기 위해 떠나가셨다. 그가 사람들에게로 돌아왔을 때에는, 다시 가슴이 가볍고 즐거워 보였다.

137:4.6 (1529.3) 결혼식은 은밀한 기대감 속에서 진행되었으나, 이 귀빈으로부터 어떤 행동이나 한마디의 말도 없이, 예식이 모두 완결되었다. 그러자, 요한에 의해 “해방자”라고 공표되었던 이 목수이자 배 제작자가 어쩌면 자기 권능을

저녁 축제인 결혼 만찬에서 보여줄 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여섯 제자-사도들은 저녁식사 바로 전에 이미 그러한 실증에 대한 자신들의 모든 기대를 실질적으로 마음속에서부터 버려야만 하였는데, 예수가 그들 모두를 불러 놓고 이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이었다: “내가 이 자리에 호기심을 가진 자들을 충족시키거나 의심하는 자들을 믿도록 하기 위한 어떤 기적을 행하러 왔다는 생각을 버려라. 오히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기 위하여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은, 그가 연관-동료들과 회의하는 것을 보고, 어떤 특별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결혼 만찬과 축제 속에서 친교의 밤을 즐기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137:4,7 (1529,4) 신랑의 아버지는 결혼 피로연에 올 모든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한 충분한 술을 준비했었지만, 아들의 결혼식이 메시아 해방자인 예수의 기대되는 현시활동과 이렇게 가깝게 연관되어지는 사건이 되어간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었겠는가? 그는 유명한 갈릴리 사람을 그의 손님으로 대접하게 되는 영광을 가져 기쁘기는 하였지만, 결혼 만찬이 끝나기도 전에, 하인들이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당황스러운 소식을 전하였다. 그 무렵에 공식적인 만찬은 이미 끝났고, 손님들이 정원을 거닐고 있을 즈음에, 신부의 어머니는 마리아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자 마리아는 자신 있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겨우 몇 시간 전에 꾸지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렇게 주제넘게 말했다.

137:4.8 (1529.5) 여러 해 동안 마리아는 나사렛의 집안일을 꾸려나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예수에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녀가 그를 생각해낸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야심 찬 어머니가 자기 큰아들에게 이번 경우의 부탁을 하는 데에는 여전히 다른 동기가 숨겨져 있었다. 예수가 정원 한 쪽에 혼자 서 계실 때, 그의 어머니가 가까이 와서 말하기를, “내 아들아, 그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리고 예수는, “선한 여인이시여, 내가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말씀하였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네 시간이 왔다고 믿는다;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다시

한 번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만, 나는 이런 식의 일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러한 일들로 또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러자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애원하기를, “그렇지만 내 아들아, 나는 그들에게 네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제발 나를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여인이여, 무엇 때문에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시는 그런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137:4,9 (1530.1)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풀이 꺾였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는 예수의 앞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눈물로 얼굴을 적시면서 그 자리에 서있었고, 그것을 본 예수의 인간 가슴은 자기를 낳아준 여인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몸을 앞으로 굽혀 그녀의 머리 위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며 말씀하였다: “자, 어머니 마리아여, 겉으로 보기에 매정한 나의 말에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단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온 것이라고 내가 여러 번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부탁하시는 일이 아버지의 뜻의 일부분이라면 얼마든지

기꺼이 하겠는데—” 말을 잇지 못하고 예수는 잠시 멈추었고, 망설였다. 마리아는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예수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춘 후, 하인들이 있는 곳으로 서둘러 가면서, “내 아들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이 이미 너무 많은 말을—아니 차라리 바램이 넘치는 생각을—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137:4.10 (1530.2) 마리아는 기뻐서 춤을 추었다. 그녀는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몰랐으나, 자기가 마침내 자기 맏아들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주장할 것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의 위치를 선포하고 메시아의 힘을 보여줄 것을 설득하였다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특정한 우주의 힘과 개인성들의 현존과 그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그녀는 실망하지 않도록 되어있었다. 마리아가 원했고 하느님-사람이신 예수가 인간적 동정으로 바랐던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137:4.11 (1530.3) 가까운 곳에는 각각 20갤런 정도 들어가는 돌로 만들어진 물동이 여섯 개가 물로 채워져 있었다. 이 물은 나중에 결혼 축하연 마지막 정결예식에 쓰려던 것이었다. 그의 어머니의 바쁜 지도 아래, 하인들이 그 큰 돌 물동이를 주위에서 법석을 떠는 것이 예수의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는 그곳으로 가셨고 그들이 물동이로부터 주전자로 포도주를 퍼 가는 것을 보셨다.

137:4.12 (1530.4)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예수는 차츰 깨닫게 되셨다. 가나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놀란 사람은 예수 자신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기적을 행할 것을 기대했었지만,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가 행하지 않으려고 결정했던 것이었다. 그 때 사람의 아들은 언덕 위에서 만났던 자신의 개인성구현된 생각 조절자의 경고를 기억해 내셨다. 시간으로부터 독립된 자신의 창조자로서의 특권을 어떤 세력이나 개인성도 그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무능력하다는 점을 조절자가 얼마나 강조하여 자신에게 경고했었는지를 회고하였다.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힘의 변환자들, 중도자들, 그리고 모든 필요한 개인성들이 물과 필요한 요소들 주위에 집합해 있었기에, 우주적 창조자 주권자의 표현되어진 소망

앞에서, 그러한 포도주의 순간적인 출현은 막을 길이 없었다. 그리고 특히 이 경우에는 아들의 바램이 아버지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의 이중적 지시 때문에 갑절로 확실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137:4.13 (1530.5)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기적은 아니었다. 어떤 자연법칙도 수정되었거나 파기되었거나 혹은 초월되지 않았다. 천상의 존재들이 포도주를 만드는데에 필요로 하는 화학적 요소를 조립하면서, 그들은 단지 시간적인 요소를 제외하고는 아무 과정도 파기하지 않았다. 가나에서의 이 경우에는 시간적인 독립과, 필요한 화학적 요소를 공간적으로 조립하는데서 초인간 대리자들이 개입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창조자의 대리자들에 의하여 평상시의 자연적 방법을 통하여 포도주가 만들어졌다.

137:4.14 (1531.1) 더 나아가 소위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의 실행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에 거역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였으며,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일은

실행되지 않았을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는 이미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맡겼기 때문이었다.

137:4.15 (1531.2) 하인들이 새 포도주를 퍼내어 “연회장의 지휘자”인 신랑 들러리에게 가져다주었을 때, 그리고 그가 신랑을 붙었을 때, 이렇게 말하였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손님들이 취한 후에는 질이 낮은 것을 내는 것이 관습이지만; 그러나 당신은 잔치가 끝날 때까지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

137:4.16 (1531.3) 마리아와 예수의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던 기적을 예수가 의도적으로 행하였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크게 향유하였지만, 예수는 정원의 외진 곳으로 물러나 잠시 동안 심각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마침내, 이 에피소드는 그 상황 아래에서는 그의 개인적 통제 범위를 넘었다는 것과, 또한 그의 아버지의 뜻에도 위반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결론을 내리셨다. 그가 사람들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그를 대하였다; 그들 모두는 그를 메시아로 믿었다. 그러나 예수는 무척 당황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했던 특별한 행적으로 인하여 자기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다. 예수는 잠시 동안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기 위하여 다시 한 번 혼자 집 꼭대기로 올라가셨다.

137:4.17 (1531.4) 예수는 이제 동정과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런 종류의 반복적인 에피소드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간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사람의 아들의 육신의 생명이 마치기 전에 여러 번 발생했었다.

제 5 장. 가버나움으로 돌아옴

137:5.1 (1531.5) 많은 손님들은 결혼 연회가 있는 그 주간 내내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는 자기가 새로 뽑은 제자-사도들—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니엘—을 데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다음 날 아침 일찍 가버나움으로 떠났다. 가나에 있던 예수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그가 그렇게 갑자기 떠났기 때문에 매우 슬퍼하였으며, 예수의 막내 동생인 유다는 그를 찾아 나섰다. 예수와 사도들은 직접 벳세다에 있는 세베대의 집으로 갔다. 이 여행 도중에 예수는 새로 뽑은 연관-

동료들에게, 도래할 왕국에 대해 중요한 일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말 것을 그들에게 특별히 경고하였다. 그는 또한 그들이 앞으로 일을 할 때, 세포리와 티베리우스 도시들을 피하라고 충고하였다.

137:5.2 (1531.6) 그 날 밤 저녁식사 후에, 세베대와 살로메의 집에서, 예수의 모든 지상(地上)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들 중의 하나가 열렸다. 단지 여섯 명의 사도들만이 그 회의에 참석하였다; 유다는 그들이 막 헤어지려고 할 때 도착하였다. 선택받은 이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가나에서부터 벳세다까지 공중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여행하였다. 그들은 기대감으로 인하여 활기가 넘쳤고 사람의 아들의 측근동료로 선택되었다는 생각으로 전율하였다. 그러나 예수가 자기가 누구이며, 땅에서의 그의 사명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끝날 것을 그들에게 명백하게 설명하자, 그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그들은 그가 하는 말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말문이 막혔으며; 베드로까지도 아무 말을 못하고 낙심하였다. 단지 생각이 깊은 안드레만이 예수의 조언의 말들에 대해 대꾸를 할 수 있었다. 예수가 그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셨을 때, 또한 그들 안에 유대인 메시아에 대한 관념이 그렇게 완벽하게 구체화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때, 그는 그들을 쉬게 하기 위하여 내보내셨으며, 그 동안에 그는 동생인 유다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셨다. 유다는 예수에게 작별을 고하기 전에,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형님이시여, 나는 당신을 결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가르친 그인지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며 다가올 그 왕국을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당신이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요단강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자신의 집인 막달라를 향해 떠나갔다.

137:5.3 (1532.1) 그 날 밤 예수는 잠을 자지 않았다. 밤외투를 두르고 호숫가에 앉아서 다음날 새벽까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였다. 그 날 밤의 긴 명상을 통하여, 예수는 자신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온 메시아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요한이 예견하였고 유대인들이 찾고 있던 자를

성취하는 방안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결국 그는 다윗 왕좌를 계승하는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좀 더 영적으로 기울었던 옛날 선지자들에 의한 예언의 말들을 실제로 이루시는 자였다. 그는 다시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이 복잡한 경우의 마지막 실마리를 푸는 일은 하느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137:5.4 (1532.2) 다음 날 아침 예수는 사도들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였지만, 그들은 모두 기쁨이 없었다. 그는 그들과 이야기하였고, 식사 후에 자신의 주위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였다: “여기에서 얼마동안 체류하는 것이 나의 아버지의 뜻이다. 너희들은, 왕국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왔다는 요한의 말을 들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이 설교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의 아들의 선구자(先驅者)가 일을 완결하면, 우리가 왕국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사도들에게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라고 지도하셨으며, 한편 자신도 세베대와 배목공소로 돌아갈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그가 설교하기로 되어있는 회당에서 만날 것과 안식일 오후에는 함께 회의를 갖도록 정하였다.

제 6 장.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들

^{137:6.1 (1532.3)} 세례를 받으신 이후의 예수의 첫 번째 대중을 위한 출현은 안식일인 서기 26년 3월 2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다. 그 회당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다. 요단강에서의 세례 이야기 이외에, 이제는 가나로부터의 물과 포도주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증강되었다. 예수는 여섯 명의 사도들을 귀빈석에 앉히셨고, 자신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도 그들과 함께 앉히셨다. 전날 밤에 가버나움으로부터 돌아와 있었던 그의 어머니도 역시 그곳에 왔는데, 그녀는 회당의 여인들 처소에 앉아 있었다. 모든 청중들은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그 날 설교하기로 되어있는 사람의 본성과 권한에 어울리는, 증거가 되는 초자연적 힘의 비범한 현시활동을 목격하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137:6.2 (1532.4)} 예수가 일어서자, 회당의 통치자는 그에게 성서 두루마리를 건네주었으며, 그는 예언자 이사야의 글부터

읽었다: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였다. ‘무릇 영이 가난하고 회개하는 자, 그리고 내 말에 떠는 그 사람을 내가 보살피리라,’ 떨고 두려워하는 너희는 주님의 말을 들을 지어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 내리라.’ 그러나 주님을 영광되게 하여라. 그가 기쁨 가운데 너희에게 오시리라 하였으니 다른 모든 이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음성이 도시에서부터 오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주님께서 보응하시는 음성으로다. 이르시되: ‘그 여인은 산고에 시달리기 전에 낳았으며, 아픔이 오기 전에, 사내아이를 낳았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화를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도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가슴이 기쁨을 향유하리라.’”

137:6.3 (1533.1) 읽기를 끝마치자 예수는 두루마리를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자리에 앉기 전에 그는 간단히 이렇게 말씀하였다: “오래 참아라, 그러면 너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와 함께 머물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의아해 하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137:6.4 (1533.2) 그 날 오후에 예수와 야고보와 유다를 포함한 사도들은 배를 타고 해변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나갔다. 예수가 그들에게 도래할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은 거기에다 닻을 내렸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 목요일 밤보다는 더 많은 것을 납득하였다.

137:6.5 (1533.3) 예수는 그들에게 “왕국이 다가오는 시간”까지는 그들의 정규적인 직무에 몰두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그 자신도 정기적으로 배 작업장에서 일하려 돌아감으로써 모범을 보였다. 예수는 그들의 앞날 일을 위한 공부와 준비를 위해 매일 저녁 세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덧붙여 말했다; “아버지께서 내게 너희를 부르라고 청할 때까지,

우리 모두는 이 근처에서 남아 있을 것이다. 이제 너희들 각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각 늘 하던 일로 돌아가야 한다. 아무에게도 나에 대해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나의 왕국은 소란스럽고 회려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가슴 안에서 그리고 왕국의 협의회에 너희와 함께 하도록 요청받아야 할 자들의 가슴에 나의 아버지께서 이룩하실 커다란 변화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이제 나의 친구이다; 나는 너희를 신뢰하며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머지않아 나의 개인적 연관-동료가 될 것이다. 인내심을 갖고 관대하라. 항상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라. 너희 자신을 왕국의 부름에 준비되어 있도록 갖추라. 내 아버지에 대한 봉사에서 너희는 커다란 기쁨을 체험할 것이나, 한편으로는 너희는 또한 고난에 대비해야만 할 것이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주의를 주건대 오로지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그로서 많은 사람이 왕국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국을 발견한 자들은 기쁨으로 넘칠 것이며 모든 세상에서 복받은 자로 불리울 것이다. 그렇지만 거짓된 희망을 품도록 되지 말라; 세상은 내 말에 걸려 흔들리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나의 친구들인 너희들도, 너희의

혼란스런 마음에 내가 펼쳐 보이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오류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표적 탐구자들의 세대를 향하여 수고하려고 나아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나의 아버지에 의해 보내졌다는 증거로 이적-행하기를 요구할 것이며, 그들은 나의 아버지의 사랑의 계시 안에서 내 사명에 대한 신임장을 인지하는 데에 더될 것이다."

137:6.6 (1533.4) 그 날 밤 그들이 육지로 돌아와서 그들 각자의 길로 떠나기 전에, 예수는 물가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내 아버지시여, 이들 작은 사람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은 의심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믿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고자 나를 따로 구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저들도 하나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제 7 장. 4개월의 훈련

137:7.1 (1533.5) 4개월—3월, 4월, 5월, 6월—에 걸치는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되었다; 예수는 여섯 명의 측근동료들과 친동생 야고보에게 100번이 넘는 길고도 진지한, 그러나 유쾌하고 즐거운 강의를 하였다. 유다는

가족 중의 하나가 아픈 연고로 거의 이 강의들에 참석할 수 없었다.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는 그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으나, 이 긴 기다림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간 동안 마리아는 자기 아들에 대해 거의 포기하였다. 가나에서 고조되었던 그녀의 신앙은 이제 처음으로 밑바닥까지 가라앉았다. 그녀는 단지 항상 되풀이했던 푸념으로 돌아갈 수 있을 뿐이었는데: “나는 그를 납득할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헤아려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고보의 아내는 마리아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였다.

^{137:7,2 (1534.1)} 이러한 4개월의 기간을 통하여, 친동생 한명이 포함된 이들 일곱 명의 믿는 자들은 예수와 점점 더 친하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이 하느님-사람과 살고 있다는 관념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들이 그를 랍비라고 부르기는 하였지만, 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을 배워나갔다. 예수는 그들과 그렇게 함께 지냄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신성으로 인하여 당황하지 않도록 하는, 비교할 수 없는 개인적 친절함을 소유하고 계셨다. 그들은 하느님이 육신화 되신 분인, 그 “하느님과 친구 됨”이 실제로 쉽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은, 믿는 자들 전체

집단을 혹독하게 시험하였다. 아무 일도, 정말 아무
기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매일 매일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일을 해나갔고, 한편 밤에는 예수
의 곁에서 함께 지냈다. 그리고 그들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의 개인성과, 밤이면 밤마다 그가 그들에게 해주는 친절
한 말들에 의해서 단합되어 갔다.

137:7.3 (1534.2) 이 기다림과 배움의 기간은, 특히 시몬
베드로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는 요한이 유대
지방에서 설교를 계속하는 동안에 갈릴리에서 왕국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자고, 반복하여 예수를 설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한 예수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시몬아, 인내심을 가져라. 발전을 이루도록 해라.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드레가 좀 더 노련하고 철학적인
조언으로 베드로를 종종 진정시키려고 하였다. 안드레는
예수의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움에 굉장한 감명을
받았다. 그는, 하느님과 그렇게 가까이 살 수 있는 자가
어떻게 인간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고 사려가 깊을 수 있는
지를 생각할 때마다 힘이 솟았다.

137:7.4 (1534.3) 이 기간 전체를 통하여 예수는 회당에서 단지 두 번 설교하였다. 이러한 여러 주간 동안의 기다림이 끝날 무렵에 가서는, 그의 세례와 가나에서의 포도주에 관한 소문은 잠잠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이 기간 동안에 더 이상의 명백한 기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아셨다. 그러나 그들이 벳세다에서 그렇게 조용히 지내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한 예수의 행적에 대한 소식은 헤롯 안티파스에게까지 전해졌는데, 그는 곧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확실히 알아보기 위하여 첩자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헤롯은 요한의 설교에 더 신경을 썼다. 헤롯은, 가버나움에서 조용하게 계속 사명활동하고 있는 예수를 괴롭히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137:7.5 (1534.4)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예수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러 다른 종교적 집단과 정치적 당파에 대해 그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관하여 자기 연관-동료들을 가르치기에 힘쓰셨다. 예수의 말씀은 항상 다음과 같았다: "우리는 그들 전부를 설복하고자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중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는 않는다."

137:7.6

(1534.5)

서기관들과 랍비들은 모두 합쳐서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렸다. 그들은 스스로 "동료들"이라고 불렸다. 그들은 히브리 경전에 분명하게 기초를 두지 않은, 오직 후대의 예언서인 다니엘에서만 언급되어진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의 믿음을 받아들였는데, 많은 면에서 유대인 집단들 중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이었다.

137:7.7

(1534.6)

사두개인들은 사제들과 특정한 부유층의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법의 집행에서의 세부적인 면에 연연하지 않았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분파(分派)라기 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종교적인 집단들이었다.

137:7.8 (1534.7)

에세네 사람들은 하나의 진정한 종교적 교파로서 마카비 반란 동안에 시작되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자격조건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까다로웠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많은 믿음들과 실천들을 받아들였고, 수도원에서 형제신분으로 살면서 결혼을 금하였으며, 모든 소유물을 공유하였다. 그들은 천사들에 관한 가르침을 전문으로 삼고 있었다.

137:7.9 (1535.1) 열심당원들은 열렬한 유대 애국자들이었다.

그들은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수하고자 하였다.

137:7.10 (1535.2) 헤롯당원들은 순수한 정치적 집단으로써 헤롯

왕조의 복원에 의한, 직접적인 로마 통치로부터의 해방을 옹호하였다.

137:7.11 (1535.3) 팔레스타인 한가운데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적 가르침과 유사한 많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과 전혀 거래를 하지 않았다."

137:7.12 (1535.4) 비교적 작은 집단인 나지르인 형제들을

포함하여, 이들 집단들과 교파들 모두는 언젠가 도래할 메시아를 믿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민족적 해방자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그와 그의 제자들은 사상의 학파와 실천들 중의 어느 하나와도 특별한 우호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다. 사람의 아들은 나지르인은 물론 에세네도 아니었던 것이다.

137:7.13 (1535.5)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도들을 내보내셨을 때, 그는 "하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가르치셨다. 그는 자기 연관-동료들에게 "사랑과 연민과 동정심을 보여야 할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였다. 그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왕국은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하느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과 관계되는 영적 체험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가르치셨다.

137:7.14 (1535.6) 그들이 대중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예수와 일곱 명의 제자들은 히브리 성서를 공부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이틀 저녁을 회당에서 보냈다. 격렬하게 대중을 위한 일을 수행하던 훗날에 가서, 사도들은 이 4개월이 주(主)와 함께 지냈던 모든 나날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도움이 되었던 시절이었다고 회상하였다. 예수는 이들에게 그들이 소화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셨다. 그는 그들을 너무 지나치게 가르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힘의 한도를 벗어나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제시함으로 인하여 혼란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제 8 장. 왕국에 관한 설교

^{137:8.1 (1535.7)} 6월 22일 안식일에, 그들이 첫 번째 설교여행을 떠나기 직전이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지 10일 정도 지났을 때, 예수는 사도들을 가버나움으로 데리고 오신 이래 두 번째로 회당의 설교단을 맡아 설교하게 되었다.

^{137:8.2 (1535.8)} “왕국”에 관한 이 설교를 하기 며칠 전, 예수가 배를 만드는 목공소에서 일하고 계실 때, 요한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전해 드렸다. 예수는 다시 한 번 그의 연장을 내려놓고 작업복을 벗으신 후, 베드로에게 말씀하였다: “아버지의 때가 왔다. 왕국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하자.”

^{137:8.3 (1535.9)} 예수가 목공소에서 작업을 마지막으로 한 날은 서기 26년 6월 18일 화요일이었다. 베드로는 목공소에서 달려 나갔고, 오후 중반 경에 모든 연관-동료들을 호숫가의 작은 숲에 모아놓은 다음, 예수를 찾으러 나갔다. 그러나 주(主)는 다른 작은 숲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가 그 날 밤늦게 세베대의 집으로 와서 음식을 구할 때까지는 그를 만나볼 수 없었다. 다음날 그는 돌아오는 안식일에

그가 설교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동생 야고보를 회당으로 보내셨다. 회당의 통치자는 예수가 다시 예배봉사를 기꺼이 수행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였다.

137:8.4 (1536.1) 예수가 자신의 공생애에서 처음으로 당당하게 내비친 성과였던, 이 기억에 남을만한 하느님의 왕국에 대한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성서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읽었다: “너희는 내게 사제들의 왕국,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야훼는 우리의 심판이시요. 야훼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분이요. 야훼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야훼는 나의 왕이시며 하느님이시요. 그는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이 왕국 안에 이스라엘 위에 사랑하시는-친절함이 내려오도다. 그가 우리의 왕이시니 주님의 영광은 복되도다.”

137:8.5 (1536.2) 다 읽으신 후 그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137:8.6 (1536.3) “나는 아버지 왕국의 설립을 선포하기 위하여 왔다. 이 왕국은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로운 자와 얽매인 자를 막론하고 경배하는 모든 혼들을 맞이할 것인데,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는 모든 자들 위에 있기 때문이다.

137:8.7 (1536.4)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하도록 자기 영(靈)을 보내신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사명을 모두 완결할 때, 진리의 영이 모든 육체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영과 진리의 영은, 너희들로 하여금 영적 납득과 신성한 정의로움으로 도래할 왕국에 자리 잡게 할 것이다.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아들은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힘이나 왕국을 설립하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왕국이 도래하고 나면,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평화의 영주로서, 영속하는 아버지에 대한 계시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이 세상 왕국의 설립과 그것의 팽창을 위하여 싸우지만, 나의 제자들은 그들의 도덕적 판단과 그들의 영적 승리에 의하여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일단 들어가고 나면, 그들은 기쁨과 정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137:8.8 (1536.5) “먼저 왕국에 들어가기로 찾아 나서고, 그렇게 하여 아버지가 지닌 것과 같은, 성격의 고귀함을 얻고자 분투를 시작하고 있는 자들은, 지금 곧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지함을 다해 말하겠다: 어린아이의 의존을 이루는 그러한 신앙과 신뢰하는 의존으로 왕국 안에 들어가기로 찾아 나서지 않는 한, 너희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입장을 허락 받을 수 없을 것이다.

137:8.9 (1536.6) 여기에 왕국이 있다' 혹은 '저기에 왕국이 있다'고 와서 말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속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그리고 물질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왕국은 지금이라도 너희들 가운데 있으니, 이는 하느님의 영이 가르치고 사람의 혼을 인도하는 곳에, 실체 안에서 하늘의 왕국이 있기 때문이다. 이 하느님의 왕국이 성령(聖靈) 안에 있는 정의로움, 평화, 기쁨인 것이다.

137:8.10 (1536.7) “요한은 진정으로 회개함과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세례를 주었지만, 하늘왕국에 들어갈 때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137:8.11 (1536.8)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을 것이며, 단지 봉사를 통하여 완전성을 구하는 자들만 있을 것이고,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아버지의 왕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먼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유사한 창조체들을 섬김으로써, 내가 그의 왕국에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곧 앉아 있게 되는 것처럼, 만일 너희가 너희 친구들을 기꺼이 섬기면, 너희들도 나의 왕국에서 나와 함께 앉아 있게 될 것이다.

137:8.12 (1536.9) “새로운 이 왕국은 비옥한 땅에 떨어져 자라나는

씨와 같다. 그것은 충만한 열매를 하루아침에 맺지 않는다. 사람의 혼속에 왕국을 세우는 것과 왕국이 영속하는 정의로움과 영원한 구원의 충만한 열매로 무르익는 때 사이에는 시간적인 거리가 있다.

137:8.13 (1536.10) “그리고 내가 선언하는 이 왕국은 힘과 풍요의

수단이 아니다. 하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완전하게 하는 봉사 안에서 진보하는 정의로움과 증가하는 기쁨으로 이루어진 일생이다. 이는 아버지가 세상에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내가 완전함과 같이 너희도 결국에는 완전 하라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137:8.14 (1537.1) "나는 왕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왕국에 들어가려는 자들에게 짐을 지우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도래할 왕국에 들어 갈 수 있는 자들에게 신성한 휴식을 취하게 해 주기 위한 새롭고 나은 길을 선포한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세상의 일들에서 너희가 치르는 비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의 값이 얼마이든지 간에, 너희는 이 세상에서는 몇 갑절의 많은 기쁨과 영적 향상을, 그리고 다가오는 시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일 것이다.

137:8.15 (1537.2)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집단의 행진이나 이 세상 왕국을 뒤집어엎는 것 또는 억압에서의 해방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풍부한 해방과 기쁜 구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37:8.16 (1537.3) "이 왕국은 영속하는 영토이다.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파라다이스에서 그의 영광의 오른 손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모든 자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다가오는 시기에 그들은 그렇게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곧 의로운 체하는 자들을 부르러 여기에 온 것이 아니고, 신성한 완전성의 정의로움에 굶주리고 목말라하는 모든 자들과 죄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다.

137:8.17 (1537.4) “요한은 와서 왕국을 위해 너희를 준비시키려고 회개하라 설교했다; 나는 이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값으로, 하느님의 선물, 신앙을 선포하러 와 있다. 너희가 단지 나의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하느님의 왕국에 있는 것이다.”

137:8.18 (1537.5) 그는 그렇게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다. 그의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의 말들에 의해 깜짝 놀랐다. 그의 제자들도 놀라워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느님-사람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좋은 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의 말을 들었던 자의 삼분의 일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언을 믿었다; 약 삼분의 일은 기대하던 왕국에 대한 그토록

순수하게 영적인 개념을 거부하려고 그들 가슴속에서 각오하였고, 그 나머지 삼분의 일의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그가 “정신이 나갔다”고 믿었다.

제 138 편 왕국 메신저들의 훈련

^{138:0.1 (1538.1)} “왕국”에 대한 복음을 설교한 후, 예수는 그날 오후에 6명의 사도들을 모아서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그의 계획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의 친형제들인 야고보와 유다는 이 모임에 참석하도록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이 매우 상하였다. 그들은 이때까지도 자신들이 예수의 가까운 연관-동료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이 왕국의 사도 지도자의 무리단에 자신의 가까운 친척을 포함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가나에서의 사건이후 그가 어머니에게 눈에 띄게 거리감을 둔 것과 아울러 야고보와 유다를 선택된 소수에서 제외시킨 이 일은 예수와 그의 가족 사이를 계속하여 더욱 멀어지게 하였던 큰 거리감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상태는 그가 대중 사명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동안—그들은 거의 그를 배척했다—계속되었으며, 이러한 서먹한 감정은 그의 죽음과 부활

이후까지도 충분히 없어지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굳건하지 못한 신앙과 희망, 그리고 실망, 창피함, 절망이 점차 증가되는 감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였다. 단지 막내인 롯만이 자신의 오빠이자 아버지격인 예수께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였다.

138:0.2 (1538.2) 부활 이후까지도, 예수의 온 가족은 그의 사명활동에 거의 상관이 없었다. 선지자가 자기 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명예를 받는다면, 그는 자기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은 그를 납득하는 깊은 감사와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 1 장. 최종적인 지시들

138:1.1 (1538.3) 서기 26년 6월 23일 일요일인 다음 날, 예수는 6명의 사도들에게 최종적인 지도를 내리셨다. 그는 그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 왕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나가도록 명하였다. 그들이 세례 주는 것을 금하였으며 대중 연설을 하지 말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는 나중에 가서 그들로 하여금 대중에게 연설하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 그러나 당분간은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인하여, 그들이 따르는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실천적인 체험을 하게 되기를 원했다. 예수는 그들의 첫 번째 여행을 전적으로 하나의 개인적 활동에 목표를 두셨다. 이러한 그의 발표가 사도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부분적으로나마, 예수가 그런 식으로 왕국 선포를 시작한 이유를 이해하였으므로, 원기왕성하게 그리고 자신만만한 열정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는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게레사로, 안드레와 베드로는 가버나움으로, 빌립과 나다니엘은 타리케아로 보내셨다.

138:1.2 (1538.4) 그들이 이 첫 두 주간의 봉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수는 그들에게 그가 떠난 후 왕국의 일을 계속할 12명의 제자를 임명하기를 원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투사된 사도 무리단의 회원을 위하여 그의 초기 개종자들 중에서 한 사람씩을 선정하도록 그들 각자에게 위임하기를 원하였다. 그러자 요한이 물었다: “주(主)여, 그렇지만 저희들은 요단에서부터 주(主)와 계속 함께 했고 그리고 그 왕국을 위한 저희의 첫 번째 임무가 되는 이 일을 준비하면서 당신의 가르침을 모두 받아왔는데, 이 여섯 사람들도 저희와 한 무리가 되고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가 대답하였다:

“그렇다, 요한아, 너희가 선택한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될 것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는 그들에게 왕국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후, 예수는 그들로부터 떠났다.

138:1.3 (1539.1) 그들 각자가 새로운 사도를 한 명씩 선택해야 한다는 예수의 지시에 대하여 많은 토론과 의견들을 교환하기까지, 여섯 명의 사도들은 많은 일을 하러 흩어지지 않았다. 결국은 안드레의 조언이 받아들여져서,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위하여 떠났다. 안드레가 말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주(主)의 말씀이 옳다;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인원이 부족하다. 선생들이 더 필요한데, 주(主)는 이들 6명의 사도들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실 만큼 우리에게 대한 신뢰를 현시해 오셨다.” 그들이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서로 헤어지던 이날 아침에, 각자의 가슴속에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약간의 침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곧 예수를 보고 싶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으며, 자신들의 두려움과 공포심 이외에도, 이러한 방식은 그들이 가슴속에 그렸던 하늘의 왕국이 임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138:1.4 (1539.2) 그 여섯 명은 두 주간 동안 일을 한 후에, 회의를 하기 위하여 세베대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다. 그 동안 예수는 요셉과 시몬 그리고 근처에 사는 다른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나사렛으로 가셨다.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념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적으로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 그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하였다.

138:1.5 (1539.3) 사도들이 이 임무를 위해 떠나가 있는 동안, 예수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였다. 자신의 잠재적 힘을 사용하여 그를 석방시키고 싶은 큰 유혹이 일어났으나, 그는 다시 한 번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위하여 한 번 더 체념하기로 하였다.

제 2 장. 여섯 명 선택

138:2.1 (1539.4) 여섯 명의 이 첫 번째 여행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들 모두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일에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결국 종교란 순수하게 그리고 온전히 개인적 체험의 문제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돌아왔다. 그들은 종교적인 위안과 영적 소생을 줄 수 있는 말씀을 듣는 일에 평민들이 얼마나 굵주려 있는지를 알기 시작했다. 예수 앞에 모였을 때, 그들은 서로 먼저 말을 하려고 하였지만, 안드레가 책임을 맡아 한 사람씩 불러서, 자신들의 보고를 주(主)께 정식으로 드렸으며, 여섯 명의 새로운 사도들에 대한 추천도 제시하였다.

138:2.2 (1539.5) 각자가 새로운 사도들에 대한 자신들의 선택을 발표한 후에, 예수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지명에 대해 투표하라고 요청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새로운 사도 여섯 명 모두는 더 오래된 여섯 명 모두에 의해 정식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 후에 예수는 이들 후보자들을 모두 함께 방문해서 그들에게 봉사에 참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38:2.3 (1539.6) 새로 뽑힌 사도들은 다음과 같다:

138:2.4 (1539.7) 1. 마태 레위는 가버나움의 세관 징수원으로서, 그의 사무실은 바타니와 경계에 가까운 도시의 동쪽에 있었다. 그는 안드레에 의해 선택되었다.

138:2.5 (1539.8) 2. 도마 디디머스는 타리케아 지방의 어부로서, 한때는 가다라 지방에서 목수와 석공 일을 하였다. 그는 빌립에 의해 선택되었다.

138:2.6 (1539.9) 3. 야고보 알패오는 게레사 지방의 어부이자 농부였으며, 야고보 세베대에 의해 선택되었다.

138:2.7 (1539.10) 4. 유다 알패오는 야고보 알패오의 쌍둥이 형제로, 그 역시 어부였으며 요한 세베대에 의해 선택되었다.

138:2.8 (1540.1) 5. 시몬 젤로페는 열심당의 고관이었는데, 그는 예수의 사도로 참여하기 위하여 그 직위를 포기했다. 열심당에 적을 두기 전에는 상인이었다. 그는 베드로에 의해 선택되었다.

138:2.9 (1540.2) 6. 가롯 유다는 그의 부모가 여리고의 부유한 유대인이었으며 외아들이었다. 그는 세례자 요한에게 동조하였으므로 사두개인인 그의 부모는 그를 더 이상 아들로 여기지 않았다. 예수의 사도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그 지역에서 직장을 찾고 있었으며, 그의 회계 경력이 주된 원인이 되어, 나다니엘이 그를 자기 무리에

들어오도록 권유하였다. 유다는 12 명의 사도들 중에서 유일한 유대지방 사람이었다.

138:2.10 (1540.3) 예수는 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그와 관련된 흥미 있고 유익한 체험들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하는 세부적인 사실들을 들으시면서 여섯 명의 사도들과 하루 종일 같이 지내셨다. 그들은 더욱 야심적인 대중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조용하고 개인적 방법으로 일을 하도록 내어 보내신 주(主)의 지혜를 이제 알게 되었다.

제 3 장. 마태와 시몬을 부르심

138:3.1 (1540.4) 다음 날 예수와 여섯 명의 사도들은 세관 징수원인 마태를 부르러 갔다. 마태는 그의 장부를 정리해 놓고, 동생에게 그의 사무실의 관련사들을 넘길 준비를 한 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세금을 걷는 사무실에 가까이 갔을 때, 안드레가 예수와 함께 앞으로 나갔으며, 예수는 마태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예수와 사도들을 자기 집으로 안내하였다.

138:3.2 (1540.5) 마태는 자신이 마련한 그날 밤의 저녁 만찬에 관해서 예수께 설명하면서, 만약 예수가 만찬의 주빈이 되어주신다면, 최소한 자기 가족과 친구들은 그 만찬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예수가 찬성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마태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이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사도로 초대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시몬도 그 만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138:3.3 (1540.6) 마태의 집에서 점심식사를 끝낸 후, 그들 모두는 베드로와 함께 시몬을 부르러 갔으며, 이제는 그의 조카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던 그의 오래된 사업 장소에서 시몬을 만났다. 베드로가 예수를 시몬에게 모시고 가자, 주(主)는 그 열성 애국자를 환영하면서 다만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만 하였다.

138:3.4 (1540.7) 그들은 모두 마태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녁 식사 전까지 정치와 종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레위 가족은 오랫동안 상업과 세금징수의 일에 종사해왔으므로; 마태가 초대한 손님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138:3.5 (1540.8) 그 당시에는 이런 종류의 연회-만찬에 저명인사가 참석하게 되면, 모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연회석상 주위를 서성거리며 식사에 참석한 귀빈을 관찰하거나 그의 대화나 연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다. 따라서 가버나움에 있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보기 드문 이러한 사교 모임에서 예수의 행위를 관찰하기 위해 그 자리에 참석했다.

138:3.6 (1540.9) 만찬의 시간이 무르익어 감에 따라, 식사에 참가한 사람들의 기쁨은 즐거운 기분이 절정에 달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유쾌한 시간을 갖는 것을 주시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그토록 가벼운 가슴으로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즐기시는 것을 보면서 가슴속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늦게,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악의가 많은 바리새인 하나가 다음과 같은 말로 베드로에게 예수의 행위에 대해 비난을 했다: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으며 그런 방탕한 자리에 참석하는 이 사람을 가리켜 너는 어떻게 감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작별 인사를 하기 직전에, 베드로는 이 비난의 말을 그에게 귓속말로 전했다. 예수는 말씀을 시작했다; “마태와 시몬을 우리 동료로 환영하여 맞이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나는 너희가 편한 마음으로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즐기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지만, 그러나 너희는 여전히 더욱 기쁨을 향유하게 될 것이니, 왜냐하면 너희 중의 많은 이가 다가오는 영의 왕국으로 들어오는 문을 발견할 것이며, 그 안에서 하늘의 왕국의 좋은 것들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친구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보고 가슴속으로 비난하는 자들에게 말하겠는데, 나는 사회적으로 짓밟힌 자들에게 기쁨을, 도덕적으로 포로된 자들에게 영적 해방을 선포하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야 되겠느냐?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138:3.7 (1541.1) 그리고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의 눈에 참으로 이상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는데: 의로운 성격과 고상한 정서를 지닌 사람이, 비종교적이며 쾌락을 추구하는 세리들은 물론,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무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시몬 젤로떼가 마태의 집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기를 원했으나, 앞으로 이루어질 왕국이 열심당의 운동과 혼동되는 것을 예수가 원치 않으리라는 것을 느낀 안드레가 어떤 공개적인 의견도 발표하지 못하도록 그를 말렸다.

138:3.8 (1541.2) 예수와 사도들은 그 날 밤을 마태의 집에서 보냈으며,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단지 한 가지 사실만을 이야기하였는데: 그것은 예수의 선함과 친절함에 대한 것이었다.

제 4 장. 쌍둥이 형제를 부르심

138:4.1 (1541.3) 다음 날 그들 9명은 다음 차례의 두 사도들, 야고보 세베대와 요한 세베대가 추천한 알패오의 쌍둥이 아들들인 야고보와 유다를 정식으로 부르기 위하여 함께 배를 타고 게레사로 건너갔다. 어부인 이 쌍둥이 형제들은 예수와 사도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호숫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야고보 세베대가 게레사의 어부들에게 주(主)를 소개했고, 예수는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였으며, “나를 따라 오라”고 말씀하였다.

138:4.2 (1541.4) 그들 모두 함께 시간을 보낸 그 날 오후에, 예수는 축제 모임에 참가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지시를 그들에게 내리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지었다: "모두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우리가 창조한 어떤 창조체도 무시하지 않으신다. 하늘의 왕국은 모든 남녀들에게 열려있다. 거기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모든 굶주린 혼 앞에 마주서서 그 자비의 문을 닫아도 될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없다. 우리는 왕국에 대해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함께 앉아 식사를 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모두 똑같이 취급한다. 따라서 바리새인이나 죄인, 사두개인이나 세리, 로마인이나 유대인,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로운 자나 속박되어진 자와 함께 빵을 떼는 것을 거부하지 말아라. 왕국의 문은 진리를 알고자 하거나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넓게 열려져 있다."

138:4.3 (1541.5) 그날 밤 알패오의 집에서 있었던 간소한 저녁 식사 시간 중에, 쌍둥이 형제는 사도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날 밤늦게 예수는 그의 사도들에게 정결하지 못한 영들의 기원, 본성, 운명에 관하여 처음으로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예수가 한 말씀의 의미를 납득할 수

없었다. 예수를 사랑하고 탄복하는 일은 매우 쉬웠으나, 그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였다.

138:4.4 (1542.1) 하루 밤을 쉰 후, 이제 11명이 된 전 인원은 배를 타고 타리케아로 건너갔다.

제 5 장. 도마와 유다를 부르심

138:5.1 (1542.2) 어부인 도마와, 방랑자 유다는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타리케아에서 예수와 사도들을 만났으며, 도마는 가까이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그들을 안내하였다. 이 때 빌립은 자기가 사도로 추천한 도마를 소개하였고, 나다니엘은 유대 지방 사람인 가롯 유다를 역시 정중하게 소개하였다. 예수는 도마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였다: “도마야, 너는 신앙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받아들인다. 나를 따르라.” 주(主)는 가롯 유다에게 말씀했다; “유다야, 우리는 모두 한 몸이며, 이제 너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니, 너는 항상 너의 갈릴리 형제들에게 충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나를 따르라.”

138:5.2 (1542.3) 그들이 휴식을 취하고 났을 때, 예수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본성과

활동에 관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얼마동안 12명을 데리고 떠났지만, 그들은 이번에도 그가 가르치고자 하는 위대한 진리들의 의미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였다. 한 사람은 한 면을 이해하고, 다른 한 사람은 다른 한 면을 이해하였지만, 그들 중에 그의 가르침 전체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항상 예수의 새 복음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의 옛 형식에 맞추려는 오류를 범하였다. 그들은 예수가 새로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느님을 찾는데 있어서 새로운 길을 설립하러 왔다는 그 관념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새로운 계시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138:5.3 (1542.4) 다음 날 예수는 그의 12 사도들을 그들끼리 남겨두시고; 그들이 서로 친해지기를 원하였으며 자신이 가르쳤던 것들에 대해서 그들끼리 서로 의논하기를 원하였다. 주(主)는 저녁 식사시간에 돌아왔으며, 식사 후에 그는 세라핌천사의 사명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사도들도 조금 있었다. 그들은 그날 밤을 지낸 후 다음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떠났다.

138:5.4 (1542.5) 세베대와 살로메는 그들의 큰 집을 예수와 그의 12사도들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아들인 다윗의 집으로 이사하였다. 예수는 선택된 메신저들과 함께 조용한 안식일을 이곳에서 보내셨으며; 그는 왕국의 선포를 위한 계획을 조심스럽게 나타내시고, 정부 당국과의 충돌을 피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말씀하였다: “만약 시민 통치자들을 비난해야 한다면, 그 임무는 나에게 맡겨라. 너희는 시저나 그의 하인들에 대해 어떤 비난도 해서는 안 된다.” 가롯 유다가 예수를 한쪽으로 불러내어 왜 요한을 감옥으로부터 구해내지 않느냐고 물은 것은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유다는 예수의 태도에 불만을 느꼈다.

제 6 장. 집중적인 훈련의 주간

138:6.1 (1542.6) 그 다음 주간 동안에는 집중적인 훈련이 진행되었다. 6명의 새로 뽑힌 사도들은 각자 자기를 추천한 사도들의 책임 아래, 그들이 왕국의 일을 준비하면서 이제까지 배우고 체험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 매일 철저히 돌이켜 보도록 하였다. 먼저 된 사도들은 후배 사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신들이 그때까지 예수로부터 배워온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었다.

밤이 되면 그들 모두는 예수의 지침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세베대의 정원에 모였다.

138:6.2 (1542.7) 이즈음에 예수는 휴식과 오락을 위하여 주중의 하루를 휴일로 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육신 속에 살아계시는 동안, 매주 하루 동안 이완-휴식의 이 계획을 꾸준히 지켰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수요일에는 결코 정규 활동들을 추진하지 않았다. 예수는 매주 이러한 휴일이 되면 대개 그들에게서 떠나가면서, 말씀했다; “나의 자녀들아, 가서 하루를 즐기어라. 왕국의 힘든 일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너희의 예전에 하던 일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오락 활동을 찾아서 새로운 기분을 즐기도록 하여라.” 땅에서 사신 이 기간 동안에 예수 자신은 이러한 하루의 휴식이 실재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인간인 그의 연관-동료들을 위해서는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계획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예수는 선생님—주(主)—이었으며; 그의 연관-동료들은 그의 학생들—제자들—이었다.

138:6.3 (1543.1) 예수는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사신 그의 삶과 그의 가르침, 그리고 후에 생길 수도 있는 자신에 관한 가르침들 사이의 차이점을,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하고자 하였다. 예수는 말씀했다; “나의 왕국과 거기에 관련된 복음이 너희의 메시지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에 관해서나 나의 가르침에 관해서 설교하는 잘못된 옆길로 빠지지 말도록 유의하라.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에 대하여 내가 계시한 것을 묘사하여 보여주어라, 그러나 나의 믿음들과 가르침들에 관한 믿음과 가르침을 가지고 행하려고 전설을 창조하고 그리고 예배종파를 세우는 섯길로 잘못 인도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그가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였으며, 그가 왜 자기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지 감히 묻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138:6.4 (1543.2) 이러한 초기의 가르침들에 있어서, 예수는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 내포되어 있지 않는 한, 될 수 있는 대로 사도들과 논쟁하는 것을 피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이 제기될 때에는 언제나 주저하지 않고 즉시 실수를 저지르는 믿음들을 바로잡았다. 유란시아에서의 예수의 세례 받으신 이후의

일생에는 단지 한가지의 목적밖에는 없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파라다이스 아버지를 좀 더 잘 그리고 좀 더 진실 되게 계시하는 일이었다; 그는 하느님께로 가는 새롭고도 보다 나은 길, 신앙과 사랑의 길의 선구자였다. 사도들에게 한 그의 교훈은 언제나 동일하였는데: “가서 죄인들을 찾으라; 낙심한 자들을 찾을 것이며 근심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어라.”

138:6.5 (1543.3) 예수는 주변 상황을 완전하게 파악하고 계셨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추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적 힘을 소유하고 계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보았을 그러한 방법과 개인성들에 온통 만족하였다. 그는 거대한 극적인 전시효과를 대동하면서 그의 임무를 수행하실 수도 있었지만, 가장 조용하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아버지의 일을 해나갈 것을 고집하였다; 힘을 나타내지 않기 위하여 몹시 애쓰셨다. 그는 이제 적어도 몇 달 동안은 그의 12사도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조용하게 일을 할 계획을 세우셨다.

제 7 장. 또 한 번의 실망

예수는 다섯 달 동안 개인적 일을 통하여 조용히 전도 운동을 하려고 계획하였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말씀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주일 단위로 일을 하였다. 그 주간의 첫 날 이른 아침에, 그가 12사도들에게 이 계획을 발표하려고 할 때, 시몬 베드로, 야고보 세베대, 가룟 유다가 예수께 와서 사적인 면담을 청했다. 예수를 한 쪽으로 모시고 가서, 베드로가 대담하게 말했다; “주(主)여, 우리는 다른 연관-동료들을 대신하여 이제 왕국으로 들어갈 시기가 무르익은 것인지 아닌지를 여쭙어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주(主)는 왕국을 가버나움에서 선포하시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것 입니까? 그리고 왕국의 설립에 있어서 당신과 함께 저희 각자가 맡게 될 직위에 대해서는 언제쯤 알게 될 것인지—” 베드로가 질문을 계속하려고 하였지만, 예수는 손을 들어 표시하면서 그의 말을 중단시키셨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하려고 근처에 서 있는 다른 사도들을 향하여, 예수는 말씀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얼마나 더 오래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너희에게 명백하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윗의 권좌에 앉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해 주었는데, 어찌하여 지금 너희가 아버지의 왕국에서 차지할 각자의 직위를 묻는단 말이나? 내가 너희를 영적 왕국의 대사로 불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내가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대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곧, 아주 가까운 날에, 이 세상에서 그리고 왕국을 선포하는 일에서 나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왕국의 메신저들로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의 가슴속에 신성한 탁월함으로 다가오는 이 왕국의 본성과 의미심장함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나의 친구들아, 다시 한 번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왕국이 힘으로 통치되거나 영광으로 지배된다는 관념을 마음속에서 지워 버려라. 진실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곧 내 손에 주어지겠지만, 이 신성한 자질을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다른 시대가 되면 너희는 진실로 권세와 영광 속에서 나와 함께 앉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겸손한 복종으로써 이 땅에서 그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138:7.2 (1544.1) 그의 연관-동료들은 다시 한 번 충격을 받았고 매우 놀랐다. 예수는 그들을 둘씩 짝을 지워 기도하러 보내시면서 점심시간까지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중대한 시간이었던 이날 오전에 그들은 각자 하느님을 발견하고자 애썼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려고 노력하였으며, 예수가 명한대로 그에게 돌아왔다.

138:7.3 (1544.2) 예수는 이제 그들에게 세례자 요한의 나타남, 요단강에서의 세례, 가나에서의 혼인 잔치, 최근에 여섯 사도를 뽑은 일, 그리고 자신의 친형제들을 그들로부터 제외시킨 점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면서, 왕국의 적들이 그들 역시 떼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짧았지만 진지한 이 말씀을 듣고, 사도들은 모두 일어나서 베드로를 선두로 하여 그들의 주(主)에 대한 자신들의 변치 않는 헌신을 선언했으며, 도마가 이것을 "다가오는 그 왕국이 무엇이든지간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라고 표현하면서, 왕국에 대한 그들의 확고부동한 충성을 맹세하였다.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모두 진심으로 예수를 믿었다.

138:7.4 (1544.3) 이 때 예수는 그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그들 가족의 생활비를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두 주간을 겨우 지탱할 만큼의 기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말씀하였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 바닷가에서 두 주간을 머물면서, 고기를 낚거나 혹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다; 그 동안에 너희는 첫 번째로 선택된 사도인 안드레의 지도 아래, 너희가 앞으로 일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하여, 현재의 개인적 사명활동과 또한 내가 나중에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을 가르치도록 너희를 임명할 때를 위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너희들 자체 내에 조직을 만들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 모두는 사기가 충천하였다; 이것은 예수가 차후에 좀 더 적극적이고 야심적인 대중 사명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확실하고 긍정적인 첫 암시를 그들에게 나타낸 것이었다.

138:7.5 (1544.4) 사도들은 그날 남은 시간들을 자신들의 조직을 완전하게 하는 데에, 그리고 그들 모두가 고기를 잡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다음 날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소용되는 배들과 그물들을 준비하는 데에 사용했다; 그들 대부분은 어부들이었고, 예수 자신도 노련한 사공이며 어부였다. 그들이 그 후 몇 년 동안 사용하게 되었던 배들 대부분은 예수가 손수 만든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 배들은 상태가 양호하고 안전하였다.

138:7.6 (1544.5) 예수는 그들이 두 주일간 고기를 잡는 일을 허락하면서 덧붙여 말씀했다; “다음에는 너희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나갈 것이다.” 그들은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고기를 잡았고, 예수는 매일 밤 각각 다른 집단과 함께 나가셨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그는 훌륭한 어부였고, 명랑한 동행자였고, 영감을 주는 친구였으며; 그들이 그와 함께 일을 하면 할수록, 그를 더욱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어느 날 마태가 말했다; “당신이 어떤 사람들을 더 깊게 알아 갈수록, 그들을 더 적게 탄복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내가 그를 점점 더 이해하지 못하겠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고 하였다.

138:7.7 (1545.1) 2 주 동안 고기를 잡고 2 주 동안 왕국을 위한 개인적 활동을 하기 위해 나가는 이 계획은 다섯 달

이상이나 계속되었으며, 심지어는 서기 26년의 그 해 말, 요한의 감금에 뒤이어서 요한의 제자들을 반대하여 지도가 내려졌던 특별 박해(迫害)들이 해제되기까지 계속되었다.

제 8 장. 12 사도들의 첫 번째 활동

138:8.1 (1545.2) 두 주간의 고기잡이를 끝낸 후, 12 사도들의 회계로 뽑힌 가롯 유다는 부양가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여섯으로 똑같이 나누었으며, 그것은 이미 그들에게 제공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서기 26년 8월 중순 무렵에 그들은 둘씩 짝을 지어 안드레가 각자에게 할당한 일터로 나갔다. 예수는 첫 두 주일 동안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두 번째 두 주일 동안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그들이 선택한 순서에 따라 두 사람씩 함께 나가셨다. 이렇게 해서 그는 대중 사명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그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으기 전에, 적어도 한 번씩은 그들 각각의 짝들과 함께 나가셨다.

138:8.2 (1545.3) 예수는 그들에게 참회나 희생물 없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영원한 사랑으로 그의 모든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점을 설교하도록 가르치셨다. 그는 사도들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토의하는 것을 금하였다:

138:8.3 (1545.4) 1. 세례자 요한의 활동과 그의 구속에 관하여.

138:8.4 (1545.5) 2. 세례 받으시던 날에 들었던 음성에 관하여. 예수는 "음성을 들었던 자만이 그것에 대해 언급하라. 나에게 들었던 것들만 말하고; 풍문에 떠도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였다.

138:8.5 (1545.6) 3.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실에 관하여. 예수는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물과 포도주에 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엄하게 명령하였다.

138:8.6 (1545.7) 그들은 두 주간 동안 어부로서 일을 하고 그리하여 그 다음 두 주간 동안 왕국의 사명활동 일을 하기 위하여 들에 있는 동안 자신들을 유지시키기에 충분한 돈을 벌었던, 두 주간씩 번갈아가면서 일한 이 5-6 개월의 기간 내내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38:8.7 (1545.8) 보통 사람들은 예수와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명활동에 경탄하였다. 무식한 자는 신앙심이 깊거나

의로울 수 없다고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오랫동안 가르쳐왔다. 그런데 예수의 사도들은 신앙심이 깊고 또한 의로웠으나; 랍비들의 지식 대부분과 세상의 지혜에는 기꺼이 무시하고자 하였다.

138:8.8 (1545.9) 예수는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소위 말하는 착한 일에서의 회개와 왕국에 입장하는 값으로 요구되는 신앙에 의한 마음의 변화—새로 태어남—사이의 차이점을 자기 사도들에게 명백하게 설명하였다. 그는 신앙만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요건이라는 것을 사도들에게 가르치셨다.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라. 그리하여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피하라.”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예수는 “신앙이 하느님의 제시되어 있는,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열려있는 문”이라고 가르치셨다. 예수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 선지자처럼 말씀하지 않았다. 그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자기 자신의 말처럼 하였다. 예수는 사람들이 기적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에게 내주하는 하느님의 사랑의 영과 구원의 은총을 만족하고 확신하는 실제적이며 개인적 체험을 찾는 것으로 향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전환시키려고 애쓰셨다.

138:8.9 (1545.10) 제자들은 주(主)께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심오한 존중과 동정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을 일찍부터 배웠으며, 온갖 종류의 남녀와 아이들에게 쏟는 이러한 한결같고 변함없는 예수의 배려에 상당히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심오한 강연 중에도, 육체와 혼의 짐을 진 지나가는 여인을 격려하기 위하여 토론을 중단하고 그 여인에게로 나가곤 했다. 그는 중간에 끼어드는 아이와 형제우애를 가지기 위해서라면, 사도들과의 진지한 회의도 중단하시곤 했다. 예수께서는 당장 눈앞에 현존하는 개별 인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듯하였다. 그는 주인이며 선생님이었지만, 그 이상이었다.—그는 또한 친구이자 이웃이었으며, 이해심 많은 동무였다.

138:8.10 (1546.1) 예수의 대중을 위한 가르침이 주로 비유와 짧은 강연으로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그는 늘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사도들을 가르치셨다. 그는 후반기의 대중 강연 동안에도 진지한 질문들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멈추셨을 것이다.

138:8.11 (1546.2) 사도들은 여인들에 대한 예수의 태도에서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으나, 그들도 곧 익숙해졌으며; 그는

왕국에서는 여인들도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였다.

제 9 장. 5개월 동안의 시험

138:9.1 (1546.3) 고기잡이와 개인적 사명을 번갈아 하던 이러한 단조로운 기간이 12사도들을 기진맥진하게 하는 체험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 시험을 견디어 냈다. 그들은 불평과 의심 그리고 과도기적인 불만감들을 간직한 채, 여전히 주(主)에 대한 그들의 헌신과 충성의 맹세를 지켰다. 이러한 시험 기간 동안 예수와 함께 지낸 그들의 개인적 관계는 그들 모두(가롯 유다를 제외한)로 하여금 재판과 십자가형의 암울한 기간들 중에서도 예수께 충성하고 진실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실제 사람들은 예수처럼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그들에게 그렇게 헌신했던, 그들의 존경하는 선생님을 실재로 쉽게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주(主)가 죽음을 맞는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 이 사도들의 가슴 안에서는 오로지 하나의 특별한 인간 감정—우정과 충성에서의 최극의 정서(感想)—을 좇아서, 모든 이성과 판단과 논리는 한편으로 밀려 나갔다. 예수와 함께 했던 이 다섯 달의 기간은 사도들 각자에게, 예수를 온 세상에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로 여기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왕국의 복음 선포를 위한 새로운 각오와 부활이 있는 후까지 그들을 함께 붙들어 준 것은, 예수 of 훌륭한 가르침들이나 굉장한 행동들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인간 정서이었다.

138:9.2 (1546.4) 조용히 일한 이들 몇 개월은 사도들에게 큰 시험, 그들이 생존한 시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 활동이 없던 이 시기는 예수의 가족들에게도 큰 시련이었다. 예수가 그의 대중을 위한 일에 개시해 나갈 준비가 되었 때가 되어서는, 그의 전 가족(룻을 제외한)은 실천적으로 예수를 저버렸다. 그 후에 그들은 단지 몇 번만 그와 접촉을 취했고, 그리고 그것도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하려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가 미쳤다고 거의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의 철학을 간단하게 헤아릴 수 없었고 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형제들에게는 그 모든 일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벅찬 일이었다.

138:9.3 (1546.5) 사도들은 가버나움, 벳세다-줄리아스, 코라진, 게라사, 히포, 막달라, 가나, 갈릴리의 베들레헴, 요타파타, 라마, 사펏, 기살라, 가다라, 그리고 아빌라에서 그들의

개인적 일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성읍들 이외에도 시골에서 그리고 많은 마을들에서 일하였다.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12명의 사도들은 그들 각자의 가족을 충분한 부양을 계획할 만큼 일을 했었다. 사도들은 대부분 결혼을 한 사람들이었고, 몇몇 사람은 자녀들도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들의 기금으로부터 적은 도움과 함께, 식구 부양의 대책을 잘 마련해 놓았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걱정하지 않고 주(主)의 일에 그들의 모든 힘을 쏟을 수 있었다.

제 10 장. 12 사도들의 조직

138:10.1 (1547.1) 사도들은 일찍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체 조직을 갖추었다:

138:10.2 (1547.2) 1. 제일 먼저 선택된 안드레가 12명의 의장이며 총책임자로 임명되었다.

138:10.3 (1547.3) 2.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의 개인적 동행자로 임명되었다. 그들은 밤낮으로 예수의 시중을 들었고, 그의 육신적인 것 또는 기타 잡다한 필요 사항을 맡아보았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교제와 기도로 그가 밤을 새우실 때, 그와 함께 있게 되었다.

138:10.4 (1547.4) 3. 빌립은 전체 모임의 사무장이 되었다. 음식을 제공하고 방문객이나 또는 가끔은 많은 집단의 청중들의 음식까지도 보살피는 것이 그의 의무였다.

138:10.5 (1547.5) 4. 나다니엘은 12명의 가족들의 부양을 책임졌다. 그는 정기적으로 각 사도의 가족들의 필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아들였으며 회계를 맡은 유다에게 청구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매주 기금을 보냈다.

138:10.6 (1547.6) 5. 마태는 사도 집단의 재정을 맡아보았다. 예산의 균형을 유지하고 재정이 잘 공급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만약 공동 부양을 위한 기금이 더 들어오지 않거나, 그 집단을 유지하는데 충분할 만큼의 기부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고기잡이를 위하여 12 사도들을 얼마동안 불러들일 수 있는 권한이 마태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들이 대중을 위한 일을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금을 회계에게 항상 맡겨둘 수 있었다.

138:10.7 (1547.7) 6. 도마는 일정을 맡아보는 책임자였다. 그는 숙소를 정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장소들을 대개 물색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행 일정이 순조롭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138:10.8 (1547.8) 7. 알패오의 쌍둥이 아들인 야고보와 유다는 군중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다. 그들의 임무는 설교하는 동안에 군중들 가운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숫자의 보좌관 안내원들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138:10.9 (1547.9) 8. 시몬 젤로떼는 레크리에이션과 놀이를 담당했다. 그는 수요일 행사일정을 관리했고 또한 날마다 몇 시간 동안 이완-휴식과 기분전환을 제공하려고 애썼다.

138:10.10 (1547.10) [138:10.10] 9. 가룟 유다는 회계로 지명되었다. 그는 돈주머니를 보관하였다. 그는 모든 경비에 드는 돈을 지불했고 장부를 관리했다. 그는 일주일 단위로 마태에게 예산안을 짜서 주었고, 안드레에게 일주일마다 보고했다. 유다는 안드레의 승인을 받아 기금에서 돈을 지출하였다.

138:10.11 (1547.11) [138:10.11] 12명의 사도들은 배반자인 유다의 저버림으로 인하여 필요가 생겨 재(再)조직을 하기 전까지 그들의 초기 조직에 의해 이런 식으로 활동했다. 서기 27년

1월 12일 일요일, 예수가 그들 모두를 불러 모아 놓고 정식으로 그들을 왕국의 대사들과 왕국의 복음의 설교자들로 임명하기 전까지, 주(主)와 그의 제자-사도들은 이러한 간단한 방식에 의거하여 일을 계속해 나갔다. 그들은 그 후 곧, 첫 번째 대중 선교 여행을 위해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으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

제 139 편 열 두 사도

139:0.1 (1548.1) 그가 반복하여 사도들의 희망을 산산이 깨트리고 그들의 개인적 환희에 대한 모든 야망을 갈갈히 찢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한 사람만이 그를 저버렸다는 사실은, 예수의 지상(地上) 일생의 매력과 정의로움을 매우 잘 증거 한다.

139:0.2 (1548.2) 사도들은 예수로부터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배웠으며, 예수는 그들로부터 사람들의 왕국, 유란시아에 살고 있던 인간들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화하는 다른 세계들에 살고 있던 인간들의 본성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다. 이 12명의 사도들은 다양한 인간 성격들을 대표하고 있었고, 학교 교육을 받음으로써 서로 비슷하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갈릴리의 어부들의

대부분에게는, 100년 전에 강제적으로 갈릴리인이 된 이방
사람들로 인한 이방인의 피가 상당히 섞여있었다.

139:0.3 (1548.3) 사도들 모두가 무식하고 교육받지 않았다고
오해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라. 알파오의 쌍둥이를 제외한
그들 모두는 회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로서, 히브리
성서에 대하여 그리고 그 당시 통용되는 지식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받았었다. 7명이 가버나움 회당 학교
출신이었으며, 갈릴리 전체에서 그보다 더 좋은 유대인
학교는 없었다.

139:0.4 (1548.4) 너희들에게 있는 기록들이 이 왕국 메신저들을
“무식하고 교육받지 못한 자”로 칭하는 것은, 그들이
랍비들의 학문에 대하여 무지하고 랍비가 사용하는 성서
해석 방법에 대해 훈련을 받지 않은 문외한들이었다는
관념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고등교육이 결여되어 있었다. 현대의 시각에서 보면
그들은 확실히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로 간주될 수 있고,
심지어 어떤 사회적 집단에서는 교양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경직되고 편견에 치우친 교육과정을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른이 된 이후로는, 그들 각자는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하였다.

제 1 장. 첫 번째로 선택된 안드레

139:1.1 (1548.5) 왕국의 사도 무리단의 대장인 안드레는 가버나움에서 태어났다. 그는 5명의 아이들—본인, 남동생 시몬, 그리고 3명의 여자 동생들—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다. 이미 고인이 된 그의 아버지는 가버나움의 어항(漁港)인 벳세다에서 고기를 말려서 파는 일에 종사하는 세베대의 동업자였다. 안드레는 사도가 되었을 때,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지만, 이미 결혼한 동생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그들은 둘 모두 어부였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동반자들이었다.

139:1.2 (1548.6) 그가 사도로 뽑힌 해인 서기 26년에, 안드레는 예수보다 한 살 많은 33세였고 사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는 훌륭한 선조들을 둔 혈통에서 태어났고,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능력이 있었다. 웅변을 제외하면, 그는 모든 연관-동료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거의 다 소유하고 있었다. 예수는 안드레에게는 애칭(愛稱), 형제우애에서의 호칭을 지어 주시지 않았다. 그러나

사도들이 곧 예수를 주(主)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듯이, 그들은 또한 우두머리라는 의미의 용어로 안드레를 호칭하였다.

^{139:1.3 (1549.1)} 안드레는 훌륭한 조직가이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더 훌륭한 행정-관리자였다. 그는 네 사도들로 구성된 핵심적인 요원들 중의 하나였지만, 예수가 그를 사도들 대원의 우두머리로 임명하였기 때문에, 다른 세 사람들이 주(主)와 매우 가까이 교제를 누리는 동안, 그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남아서 일을 해야만 하였다.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안드레는 사도 대원들의 책임자로 남아 있었다.

^{139:1.4 (1549.2)} 안드레는 결코 유능한 설교자가 되지 못하였지만, 개인적 일에 있어서는 효력적인 일꾼이었는데, 그 일을 통하여 왕국의 선구자적인 선교사 역할을 하였고, 첫 번째로 뽑힌 사도로서 즉시 자기 동생 시몬을 예수께로 데려왔으며, 그 시몬은 나중에 왕국의 가장 훌륭한 설교자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안드레는, 12사도를 왕국의 메신저들로 훈련시키는 수단으로, 개인적 사명활동의 과정을 활용하는 예수의 방침을 가장 잘 협조한 사람이었다.

139:1.5 (1549.3) **예수가 사도들을 사적(私的)으로 가르치셨을 때나 아니면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였을 때나, 안드레는 대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를 훤히 알고 있었다; 그는 납득하는 집행자였고 능률적인 행정-관리자였다. 자신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바로 예수께로 가져갔고, 그렇지 않은 한은 그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139:1.6 (1549.4) **안드레와 베드로는 성격에서나 기질에서나 매우 달랐지만, 매우 사이가 좋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칭찬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영속적으로 기록에 남겨야 할 것이다. 안드레는 결코 베드로의 웅변술을 질투하지 않았다. 나이가 더 많은 안드레 같은 형(型)의 사람이, 자기보다 어린 재주 있는 형제에게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보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각자의 힘이나 업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질투하는 것처럼 보인 적이 없었다. 오순절의 늦은 밤에, 주로 베드로의 열광적이고 영감 있는 설교를 통하여 2,000명의 혼들이 왕국에 더 들어오게 되자, 안드레는 자기 동생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동생을 가져서 기쁘다.” 거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하였다: “형이 나를 주(主)에게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꾸준히 나를 주(主) 옆에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형제지간이라도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함께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안드레와 베드로는 일반적인 규칙에서 예외가 되었다.

139:1.7 (1549.5) 베드로는 오순절 이후에 유명해졌지만, “시몬 베드로의 형”으로 불리면서 나머지 일생을 지내는 것이 안드레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

139:1.8 (1549.6) 모든 사도들 가운데서, 안드레가 사람들을 가장 잘 판단하였다. 그들의 회계가 무엇인가 그릇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할 때에도, 안드레는 가롯 유다의 가슴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지만; 자기가 걱정하는 바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왕국에 대한 안드레의 위대한 봉사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복음 선포를 위해 내보낼 첫 번 선교사들을 선정하는데 관해서 조언을 해준 것과, 그리고 또한 왕국의 행정-관리적인 관련사들에서의 조직에 대하여 이들 초기 영도자들에게 조언을 준

것이였다. 안드레는 젊은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자원과 잠재적인 재능을 발견하는데 남다른 선물을 갖고 있었다.

139:1.9 (1549.7) 예수의 상승 이후 곧바로, 안드레는 떠나가신 주(主)의 많은 말씀들과 행적들에 대하여 개인적 기록을 쓰기 시작했다. 안드레가 죽은 후에는 이 사적(私的)인 기록에 대한 다른 사본들이 만들어졌고, 그것들은 그리스도교 교회의 초기 선생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회람(回覽)되였다. 안드레의 이러한 비공식적인 기록들은, 이 세상에서의 주(主)의 일생에 관해 사람들이 상당히 일관적인 이야기를 만들기 전까지, 훗날에 편집되어지고, 수정되어지고, 바뀌고, 첨부해졌다. 이러한 바뀌고 수정된 약간의 사본들의 마지막 사본은, 12 사도들 중의 첫째 사도가 원본을 쓴 이래 100년이 지났을 즈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불에 타 없어졌다.

139:1.10 (1550.1) 안드레는 명석한 통찰력, 논리적인 사고, 확고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의 성격에서 가장 큰 장점은 비할 바 없는 안정감에 있었다. 그의 성격적 단점은 열정이 결여된 것이었는데; 그는 현명한 칭찬으로 자기 연관-동료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일에 여러 번 실패하였다.

그리고 그가 연관-동료들의 가치 있는 업적들에 대한 칭찬에 인색하였던 것은, 아침이나 불성실에 대한 그의 혐오감 때문이었다. 안드레는 다재다능하고, 침착하며, 자립적이고, 자아-제작의, 그만그만한 관련사에 성공한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139:1.11 (1550.2) 사도들 각자가 모두 예수를 사랑하였지만, 12명 각자가 그에게 이끌린 것은, 각 사도들에게 특별히 호감을 주는 그의 어떤 개인성의 특색 때문이었음이 사실이다. 안드레는 예수의 일관적인 신중함과 변하지 않는 위엄으로 인하여 그를 탄복했다. 사람들이 일단 예수를 알게 되면, 그들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예수를 알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실제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기 원하였다.

139:1.12 (1550.3) 나중에 있었던 박해로 인하여 결국에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지게 되었을 때, 안드레는 아르메니아, 소아시아, 마케도니아를 지나 여행하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왕국으로 인도한 후에, 결국에는 아카이아의 파트라에에서 체포되어 십자가형을 당하였다. 이 건장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만 이틀이나 걸렸으며, 이러한 비극적인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에도 그는 하늘의 왕국의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일을 영향을 끼치도록 계속하였다.

제 2 장. 시몬 베드로

^{139:2.1 (1550.4)} 시몬이 사도로 가입하였을 때, 그는 30세였다. 그는 결혼을 해서 세 명의 아이들이 있었으며, 가버나움 가까이 있는 벳세다에서 살았다. 그의 형인 안드레와 장모가 그와 함께 살았다. 베드로와 안드레 둘 모두 세베대의 아들들과 동업하는 어부들이었다.

^{139:2.2 (1550.5)} 주(主)는 안드레가 시몬을 자신의 두 번째 사도로 소개시키기 이전부터, 그를 알고 계셨다. 예수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시며 그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별명이었다. 시몬은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엉뚱하고 충동적인 사람으로 유명하였다. 이렇게 가볍게 지어준 별명에, 나중에 가서는 예수가 새롭고 의의(意義)깊은 의미를 덧붙였던 것이 사실이다.

^{139:2.3 (1550.6)} 시몬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격한 감정에 탐닉하는 것을 스스로 용납하면서

자라왔고; 생각 없이 말을 잘하였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곤경에 처하곤 하였다. 그의 이런 식의 경솔함은 또한 그의 친구들이나 연관-동료들 모두에게도 끊임없는 곤경을 가져다주었으며 이런 이유로 해서 그는 주(主)로부터 가벼운 꾸중을 많이 들었다. 그러한 생각 없이 뱉어내는 말들로 인하여 좀 더 많은 곤경에 빠져들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자신의 많은 계획들을 공개적으로 털어놓는 모험을 하기 전에, 그의 형인 안드레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매우 일찍부터 터득한 때문이었다.

139:2.4 (1550.7) 베드로는 웅변술이 좋고 극적인 유창한 웅변가였다. 그는 또한 본성적 그리고 영감을 주는 영도자였으며 생각이 빠른 사람이었지만, 깊이 심사숙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도들의 질문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질문들을 하였으며, 대부분의 질문들이 선하고 적절한 것들이었지만, 그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은 생각 없이 나온 어리석은 것들이었다. 베드로는 심지(心地)가 깊지 못하였지만, 자신의 가슴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결정을 빨리 하고 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호숫가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경탄의 말을 하고

있는 동안, 베드로는 주(主)를 만나기 위해 물 속에 뛰어 들어 해변으로 헤엄쳐 나갔다.

139:2.5 (1551.1) 베드로가 예수를 가장 탄복하게 되었던 그의 특색은 뛰어난 친절함이었다. 베드로는 예수의 관용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결코 싫증나지 않았다. 그는, 그릇된 행동을 한 자를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교훈을 절대로 잊지 못하였다. 그는 대제사장의 정원에서 경솔하게 예수를 부인한 직후에, 그 어둡고 우울했던 날들 동안 주(主)의 관용의 성격에 대해 자기가 받았던 인상들을 많이 회상하였다.

139:2.6 (1551.2) 시몬 베드로는 애처로울 정도로 갈팡질팡하였다; 한쪽 끝에서 다른 끝으로 갑작스럽게 흔들리곤 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에게 자신의 발을 씻기지 못하게 했다가, 주(主)의 대답을 듣고 나서는, 몸 전체를 씻겨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결국 예수는 베드로의 약점이 머리에 있고,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다. 그는 이 세상에 그 때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용기와 비겁함을 동시에 지닌 가장 희한한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그의 성격 중 가장 큰 장점은 충성심과 우애(友愛)였다.

베드로는 실제로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타오르는 격렬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 불안정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한 소녀 하인의 놀림 때문에 자신의 주님이신 주(主)를 부인하게까지 되었다. 베드로는 박해나 다른 형태의 직접적인 모욕은 잘 견디었지만, 조롱 앞에서는 기운이 빠지고 위축되었다. 그는 전면 공격을 당해서는 용감한 병사였으나, 후면 습격에 의해 놀랄 때에는 두려워서 움츠러드는 겁쟁이었다.

139:2.7 (1551.3) 베드로는, 사마리아인들 가운데서의 빌립의 일과 이방인 가운데서의 바울의 일들에 대하여, 예수의 사도들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두둔하고 나섰다; 그런데도 나중에 안디옥에서, 조롱하는 유대주의자들과 부딪혔을 때, 그는 자신의 입장을 뒤집었고, 일시적으로 이방인으로부터 물러난 것은 바울의 두려움이 없는 비난에 자신의 고개를 떨구게 만들 뿐이었다.

139:2.8 (1551.4) 그는 예수의 병합된 인간성과 신성에 대하여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로 진심으로 고백을 하였으며 또한 첫 번째로—유다를 제외하고—예수를 부인하였다. 베드로는 그렇게 심한 공상가는 아니었지만, 황홀함의

구름과 극적 몰입의 열정으로부터, 실체의 평범하고도 사실그대로의 세계로 내려오기를 싫어하였다.

^{139:2.9 (1551.5)} 예수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앞에서 이끌던가 아니면 뒤에—“아주 멀찍이 떨어져서”— 쳐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12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였고; 바울을 제외하고는, 한 세대동안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왕국을 설립하였고 메신저들을 온 세상 끝까지 보냈다.

^{139:2.10 (1551.6)} 자신이 발견하였던 주(主)를 경솔하게 부인한 후, 그리고 사도들이 안드레의 동정심 있고 이해심 많은 지도를 받아가면서, 십자가형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는 그들을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에 다시 한 번 앞장섰다. 예수가 자기를 용서했다는 것을 충분히 확신하고, 자신이 주(主)의 양 떼 속으로 되돌아가 받아들여져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왕국의 불이 그의 혼속에서 너무나 밝게 불타올라서 어둠에 앉아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위대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었다.

139:2.11 (1551.7) 예루살렘을 떠난 후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들의 그리스도교 교회들 안에서 영도하는 영이 되기 전에, 베드로는 바빌론으로부터 고린도까지의 모든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광범위하게 여행하였다. 그는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까지도 방문하고 그들을 섬겼다. 비록 베드로와 바울이, 성질에서나 교육 수준에서 그리고 신학에 있어서까지도 서로 많이 달랐지만, 그들은 후반기의 세월 동안에는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하였다.

139:2.12 (1552.1) 베드로의 방식과 가르침의 일부가 누가와 마가에 의해 기록된 설교 안에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의 박력 있는 태도는 베드로 전서로 알려진 그의 편지에서 좀 더 잘 나타나는데; 적어도 그것이 바울의 어떤 제자에 의해 나중에 변경되어지기 전까지는 이것이 사실이었다.

139:2.13 (1552.2)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가 결국 실제적이고 진정한 유대의 메시아였다고 유대인들에게 확신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오를 계속 범하였다. 죽는 바로 그 날까지, 시몬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예수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유대인의 메시아로서의 개념,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라는 개념,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즉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계시라는 개념 사이에서 계속 혼란을 겪었다.

139:2.14 (1552.3) 베드로의 아내는 매우 유능한 여인이었다. 여러 해 동안 그녀는 여인들 무리단의 요원으로 일했으며,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추방당하자 그녀는 그의 선교여행은 물론이고 교회 방문에도 그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저명한 자기 남편이 죽음을 당하는 날, 그녀도 로마의 경기장에서 사나운 짐승들에게 던져지게 되었다.

139:2.15 (1552.4) 그리고 예수와 친밀하였던, 내부 모임의 하나였던, 이 베드로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신의 사명활동이 완수될 때까지, 힘과 영광으로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였다; 그를 체포한 자가 그도 역시 그의 주(主)처럼—십자가에 달려서—죽어야한다고 알려주었을 때, 자신을 높은 명예를 받는 자로 여겼다. 그렇게 해서 시몬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였다.

제 3 장. 야고보 세베대

139:3.1 (1552.5)

예수가 “우뢰(雨雷)의 아들들”이라고 별명을 붙였던 세베대의 아들인 두 사도들 중에서, 형인 야고보는 사도가 되었을 때 30세였다. 그는 결혼을 해서, 4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가버나움의 근교에 있는 벳세다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어부였으며, 자기의 동생인 요한과 함께 그리고 안드레와 시몬과 공동으로 자기 소명에 열성을 다하였다. 야고보와 동생 요한은 다른 어떤 사도들 보다 예수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는 이점(利點)이 있었다.

139:3.2 (1552.6)

이 유능한 사도는 모순 덩어리의 기질을 가졌다; 그는 실제로 두개의 본성을 소유한 듯 하였고, 둘 모두가 강한 감정으로 작용되었다. 그는 분개가 치밀어 오르면, 두드러지게 과격하였다. 그는 성질이 한번 잘못 건드려지면, 불같은 성미를 나타냈으며, 폭풍이 일단 지나가고 나면, 그는 그것이 전적으로 정의로운 분개의 현시활동이었다고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분노를 언제나 정당화시키고 변명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러한 주기적인 분노의 노출을 제외하면, 야고보의 인간성은 안드레의 인간성과 비슷하였다.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한 안드레의 사려 깊은 분별력이나 통찰력은 가지지 못했지만,

안드레보다 훨씬 나은 대중 웅변가였다. 마태가 없었다면, 야고보가 베드로 다음으로 12명 중에서 가장 우수한 대중 웅변가였다.

139:3.3 (1552.7) 야고보는 어떤 면에서도 기분파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하루는 조용하고 과묵하다가 다음 날엔 말이 많은 수다쟁이가 되곤 하였다. 그는 흔히 예수와 자유롭게 이야기를 잘하였지만, 12명 중에서는 한꺼번에 며칠씩이나 가장 말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였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이렇게 기묘하게 찾아오는 침묵이었다.

139:3.4 (1552.8) 야고보의 개인성 중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하나의 일에 대한 모든 면들을 볼 수 있는 힘이었다. 12명 전체 중에서, 그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실제적인 취지와 의의(意義)를 가장 근접되게 파악한 사람이었다. 그 역시 처음에는 주(主)께서 의미하는 바를 더디게 이해하였지만, 그들이 훈련을 모두 끝마치기 전에, 그는 예수의 메시지에서부터 우월한 개념을 취득하였다. 야고보는 인간 본성의 넓은 영역을 납득할 수 있었다; 다재다능한 안드레와, 충동적인 베드로와, 자아-억제적인 자기 동생 요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139:3.5 (1553.1)

야고보와 요한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 그들이 얼마나 서로 잘 지내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영감을 주고 있었다. 그들은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만큼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 지내지는 못하였지만, 특별히 그렇게 고집이 세고 단호한 그 형제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두 형제들 사이에서 기대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해 나갔다. 그러나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다는 서로 각자에게 더 많은 참을성을 베풀었다. 그들은 서로 매우 다정했으며, 언제나 좋은 놀이 동무가 되었다. 자기들의 주(主)에게 불경스럽게 대했다고 여겨지는 사마리아인들을 없애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불러 내리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우뢰의 아들들”이었다. 그러나 야고보의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인하여 동생인 요한의 격렬한 성질은 많이 누그러졌다.

139:3.6 (1553.2)

야고보가 가장 감탄한 예수의 특징은 주(主)의 동정심 많은 애정이었다. 작은 자와 위대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예수의 납득하는 관심은 그에게 큰 호감을 주었다.

139:3.7 (1553.3)

야고보 세베대는 균형이 잡힌 사색자이며 계획가였다. 그는 안드레와 함께 사도 그룹에서 좀 더 안정된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그는 격렬한 사람이었지만 절대로 성급히 굴지 않았다. 그는 베드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훌륭하게 하였다.

139:3.8 (1553.4)

그는 겸손하였고, 극적이지 않았으며, 매일의 일에 충실한, 잘난 체 하지 않는 일꾼이었고, 일단 왕국에 대한 실제 의미를 파악하였을 때에는 더 이상 특별한 보상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예수의 오른팔과 왼팔의 역할을 하게 되느냐고 예수께 물어보았다는 그들의 어머니의 이야기에 관해서는,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은 야고보가 아닌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책임들을 맡아볼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을 때, 주(主)께서 로마의 권력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상상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동참하는 일은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과, 그들은 또한 그 값을 기꺼이 치르려고 하였다는 점을 꼭 알아야만 한다. 예수가 그들에게 그 잔을 마실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야고보에게는

그것은 문자 그대로 참말이었다.—그는 일찍이 헤롯 아그립바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순교를 체험하는 사도들 중 첫 번째임을 보여주면서, 주(主)와 함께 잔을 마셨다. 야고보는 그렇게 해서 왕국의 새로운 전선(戰線)에서 12명 중 처음으로 자기 생명을 바쳤다. 헤롯 아그립바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야고보를 특히 두려워하였다. 그는 때로는 정말로 조용하고 말이 없었지만, 그의 신념이 자극되어지고 도전을 당하면 용감하였고 흔들리지 않았다.

139:3.9 (1553.5) 야고보는 그의 일생을 충실하게 살았으며, 자신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 너무도 우아하고 깨끗하게 자신을 버티었기에, 재판과 처형장에 참석하였던, 그를 비난하고 고발한 사람까지도 깊은 감명을 받아서, 야고보의 처형장으로부터 뛰쳐나가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합류하였다.

제 4 장. 요한 세베대

139:4.1 (1553.6) 요한은 사도가 되었을 때, 24세였고 12명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다. 그는 아직 결혼 전이었고 벳세다에서 자기 부모와 함께 살았다; 형인 야고보와 함께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와 동업으로 어부의 일을 하였다. 사도가 되기 전이나 후 모두, 요한은 주(主)의 가족에 관계되는 일에서 예수의 개인적 대리인의 일을 하였으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줄곧 이 책임을 맡아보았다.

139:4.2 (1553.7) 요한은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어린데다가 가족 관련사로 예수와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주(主)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예수가 사랑한 제자”였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너희가 보기에도 예수처럼 도량이 넓은 개인성이 다른 사람들 보다 한 사람을 편애했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요한이 예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알아왔다는 사실을 제쳐놓더라도, 그가 예수의 3명의 개인적 측근 보조원들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이, 이런 잘못된 관념을 더 심화시켜 주었다.

139:4.3 (1554.1)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들이 사도로 된 후 곧 예수의 개인적 보조원들로 임명되었다. 12명이 선택된 직후에 그리고 예수가 안드레를 그 무리들의 단장으로 임명할 때, 그는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제

네가 너의 연관-동료들 중에서 나와 함께 있으며 내 곁에 남아서 나를 돕고 일상적인 일들을 보살펴 줄 두 세 사람을 선택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안드레는 이 특별한 임무에 자기 다음으로 뽑힌 3명의 사도들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그렇게 축복 받은 봉사에 자신이 자원하고 싶었지만, 주(主)는 이미 자기에게 다른 임무를 맡겼으므로; 즉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의 곁에서 시종들도록 임명하였던 것이다.

139:4.4 (1554.2) 요한 세베대는 성격상 좋은 특색들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던 성격은, 그의 과도한 그러나 잘 숨겨진 자만심이였다. 예수와 오랫동안 지낸 기간들은 그의 성격에 많은 좋은 변화를 주었다. 이 자만심이 매우 많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나이가 많아져서 다소 유치해지기 시작한 후에는, 이 자아-존경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으며, 그리하여 그가 나단을 시켜 이제 자기 이름으로 복음서를 쓰게 되었을 때, 나이 많은 이 사도는 자기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로 계속해서 호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요한이 이 세상의 어떤 필사자들보다 더 가까운 예수의 친구였다는 점, 그가 많은 일들의 경우에 예수가 선택한 그의 개인적

대리자였다는 사실을 간주해 볼 때,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로 자신을 여겼던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자신이야말로 예수가 자주 신임하셨던 제자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39:4.5 (1554.3) 요한의 성격 중에서 가장 강한 특색은 그의 신뢰성 이었다; 그는 신속했고 용감했으며, 신실했고 헌신적이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특징적인 자만심이었다. 그는 자기 가족들 중에서 막내였고 사도 그룹에서도 나이가 가장 어렸다. 아마도 그는 좀 버릇이 없었는지 모르며; 아마도 좀 지나치게 비위가 좋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후의 요한은, 24세에 예수의 사도로 참가하였던 당시의, 자아-찬탄이 있는 제멋대로였던 젊은이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139:4.6 (1554.4) 요한이 가장 좋아하였던 예수의 특징들은, 그 주(主)의 사랑과 사심-없음이었는데; 이러한 특색들이 그에게 큰 감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후의 그의 전 일생은 사랑의 정서와 형제로서의 헌신으로 지배되어졌다. 그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사랑에 관하여 기록하였다. 이 “우뢰의 아들”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 에베소에서 이

연로한 감독이 더 이상 설교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어 의자에 앉은 채로 교회로 옮겨야만 하였을 때, 그리고 예배봉사를 마치면서 신도들에게 몇 마디의 말씀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여러 해 동안을 걸쳐 그는 오로지, “아이들아, 서로 사랑하라.”라고만 말하였다.

139:4.7 (1554.5) 요한은 감정이 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생각은 많이 하였지만,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질이 많이 양순해졌고, 좀 더 잘 통제되었지만, 말하기를 꺼리는 이러한 성격은 결코 개선되지 않았다; 이 과묵함을 충분히 극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주목할 만한 그리고 창조적인 상상력의 선물을 갖고 있었다.

139:4.8 (1555.1) 요한에게는 이러한 조용하고 내성적 유형의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다른 면이 있었다. 그는 다소간 웅중하였으며 지나칠 정도로 참을성이 없었다. 이 면에서는 그와 야고보는 매우 닮은 편이었다.—그들 두 사람은 하늘로부터 불을 불러 무례한 사마리아인들의 머리 위로 떨어뜨리기를 원하였다. 요한은, 어떤 낯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자, 즉시

그들을 제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자아-존경과 우월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12명 중에서 단지 요한 하나뿐이었던 것은 아니다.

139:4.9 (1555.2) 요한의 일생은, 예수가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어머니와 가족들을 돌보기 위한 대책을 세워 놓았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가 집이 없이 다니는 광경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다. 또한 요한은 예수의 가족이 그를 이해하지 못한 연유로 그와의 관계가 차츰 소원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동정하였다. 예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조금이라도 거역하는 일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가 일상생활에서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신뢰와 더불어, 이 모든 상황이 요한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의 성격은 현저하게 그리고 영구적인 변화를 보였는데, 그 변화들은 훗날의 그의 온 일생을 통하여 현시되었다.

139:4.10 (1555.3)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거의 갖고 있지 않은, 냉철하고 대담한 용기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가 체포된 날 밤에도 예수를 따라 갔었고, 죽음의 바로 문턱까지 자기 주(主)를 대담하게 동행하였던 유일한

사도였다. 그는 항상 예수와 함께 있었고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까지도 예수의 곁을 지켰으며, 예수의 어머니에 관한 그의 신뢰를 끝까지 계속해서 지켰으며, 주(主)의 필사자 실존으로서의 마지막 순간에도 추가적인 지침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곁에 있었다. 요한이 굉장히 믿을 만하였다는 그 한 가지 점은 확실하였다. 12사도들이 식사를 할 때, 요한은 대개 예수의 오른 편에 앉았다. 12사도들 중에서 그가 처음으로 실제로 충분하게 부활을 믿었으며, 부활한 예수가 해변에서 그들에게 가까이 왔을 때, 처음으로 주(主)를 알아 본 사람도 그였다.

139:4.11 (1555.4) 이 세베대의 아들은 그리스도교 운동의 초기 활동들에 있어서 베드로와 매우 가깝게 연관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후원자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오순절 날에 그는 베드로의 오른 팔 역할을 하였다.

139:4.12 (1555.5) 야고보가 순교한 후 몇 년 뒤에, 요한은 과부가 된 자기 형수와 결혼하였다. 그의 일생의 마지막 20년간은 사랑스러운 손녀의 보살핌을 받았다.

139:4.13 (1555.6) 요한은 여러 차례 구속되었고, 다른 황제가 로마에서 정권을 잡기 전까지 4년 동안 팻모섬으로

유배되었다. 요한이 약삭빠르거나 영리하지 못했었다면, 형인 야고보보다 더욱 더 거침없이 말하는 그 역시 처형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더불어, 정부의 고관들 앞에 불러 나갔을 때 그들은 현명한 화해를 실천하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부드러운 대답이 화를 물리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또한 "하늘의 왕국"으로서의 교회 대신에 오히려 "인류의 사회적 봉사"에 헌신하는 영적 형제들"로서의 교회를 표현하는 것도 배웠다. 그들은 지배하는 힘—왕국과 왕—보다는 사랑하는 봉사를 가르쳤다.

139:4,14 (1555.7) 팻모섬에 잠시 유배되었을 때, 요한은 계시록을 썼는데,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많이 단축되어지고 왜곡되어진 형태의 것이다. 이 계시록은 어떤 엄청난 계시의 잔존하는 단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후에, 많은 부분들이 실종되었고, 어떤 부분들은 제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것은 단지 단편적이고 다른 것이 섞여진 상태에서 보존되어 왔다.

139:4.15 (1555.8) 요한은 많은 여행을 하였고, 쉬지 않고 일을 하였으며, 아시아 교회들의 감독이 된 후에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99세 때에 에베소에서 자기 연관-동료인 나단에게 소위 "요한에 의한 복음서"라고 불리는 글을 쓰도록 지도하였다. 12사도들 모두 중에서, 결국에는 요한 세베대가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되었다. 그는 에베소에서 그의 나이 101세인 서기 103년에 수명을 다하고 죽었다.

제 5 장. 호기심 많은 빌립

139:5.1 (1556.1) 빌립은 다섯 번째로 뽑힌 사도였는데, 예수와 그의 첫 4명의 사도들이 요한을 만난 후 갈릴리의 가나로 가는 도중에 요단에서 부름을 받았다. 그가 벳세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빌립은 예수와 이미 아는 사이였지만, 요단 계곡에서 예수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예수가 실제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고 있었다. 빌립은 또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를 해방자로 받아들였다는 사실로 인해 얼마간의 영향을 받았다.

139:5.2 (1556.2) 빌립이 사도로 참여했을 때, 그는 27세였는데; 최근에 결혼을 하였고, 아이는 아직 없었다. 사도들은 그에게 "호기심"이라는 뜻의 단어로 별명을 붙여 주었다. 빌립은 언제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하였다. 그는 어떤 계획에 있어서도 결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듯 하였다. 그는 바보스럽지는 않았지만, 상상력이 부족하였다. 이 상상력의 결핍은 그의 성격상 단점이었다. 그는 평범하고 단조로운 사람이었다.

139:5.3 (1556.3) 사도들이 봉사를 위하여 조직을 갖추게 되었을 때, 빌립은 사무장(事務長)의 일을 맡았는데; 그들에게 양식이 항상 원활하게 공급되는지를 살피는 것이 그의 의무였다. 그는 훌륭한 사무장이었다. 그의 가장 강한 특징은 형식적인 철저함이었는데; 그는 수학적이며 체계적이었다.

139:5.4 (1556.4) 빌립의 가족에는 3명의 아들과 4명의 딸이 있었다. 그는 둘째였는데, 부활 후에는 그의 온 가족을 왕국으로 데려오도록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빌립의 친족들은 모두 어부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매우 힘이 있었고, 깊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으나, 어머니는 그저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다. 빌립은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사소한 일들을 큰일처럼 할 수 있었고, 그것들을 매우 잘 적절하게 하였다. 4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을 먹일 만큼의 충분한 음식을 준비하는데 실패한 것은 단지 몇 번뿐이었다. 그들이 지내는 동안 겪었던 많은 비상시(非常時)에도, 그가 준비를 제대로 못한 적은 거의 없었다. 사도들 집단의 물자조달 부서는 지혜롭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리되었다.

139:5.5 (1556.5) 빌립의 강점은 그의 조직적인 확실성에 있었고; 체질상 약점은 상상력의 철저한 결핍으로, 둘에 둘을 더하면 넷이라는 생각이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추상적인 것에서는 수학적이었지만, 상상력에 있어서는 건설적이 아니었다. 그는 특정 유형의 상상력에 있어서는 거의 전적으로 결핍되어 있었다. 그는 평범하고 단조로운 전형적인 보통 사람이었다. 예수의 가르침과 설교를 듣기 위해 온 군중들 가운데는 그런 남녀가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 주(主)의 위원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갖고 높여진 것을 봄으로써 큰 위안을 얻었다; 그들 자신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이미 왕국의 관련사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예수는 빌립의 우둔한 질문들에 대하여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여 주었고, “눈에 보여 달라”는 자기 사무장의 요구에 그토록 여러 번 응하면서, 어떤 인간들의 마음이 작용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알게 되셨다.

139:5.6 (1556.6) 빌립이 계속해서 탄복해 마지않았던 예수에 관한 한 가지의 본질특성은 주(主)의 끊임없는 관대함이었다. 빌립은 예수로부터 웅졸하고, 인색하고, 찌제한 어떤 것을 결코 볼 수 없었으며, 그리고 그는 이러한 항상 나타나는 변함없이 자유로움을 허용하는 너그러움을 경배하였다.

139:5.7 (1557.1) 빌립의 개인성에는 감탄할 만 한 점은 거의 없었다. 그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사는 성읍인 벳세다의 빌립”이라고 흔히 불렸다. 그는 거의 선견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다; 주어진 환경에서 극적인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는 비관론적이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평범하였다. 그는 또한 영적 통찰력이 매우 부족하였다. 그는 명백하게 우둔한 질문을 가지고, 주(主)의 심오한 강연 중간에 예수를 중단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는 그러한 생각이 모자란 점에 대하여 절대로

책망하지 않았다; 빌립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였고, 가르침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의 무능함을 참작하였다. 예수는, 자신이 한번이라도 이러한 방해되는 질문들에 대해 그를 책망한다면, 그 견책은 빌립을 매우 상하게 하여 그가 다시는 자유롭게 질문을 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매우 잘 아셨다. 예수는 우주에 있는 그의 공간 세계들 속에는 빌립과 비슷하게 생각이 더딘 혼들이 수 억이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며, 그들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고 항상 그들의 질문들이나 문제들을 자기에게 편한 마음으로 가지고 오도록 용기를 북돋울 수 있기를 원하였다. 아무튼, 예수는 자기가 설교하려던 교훈들보다도 빌립의 우둔한 질문들에 실제로 더 관심이 있었다. 예수는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모든 종류의 인간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두셨다.

139:5.8 (1557.2) 이 사도 사무장은 훌륭한 대중 연사는 아니었지만, 매우 설득력 있고 성공적인 개인적 일꾼이었다. 그는 쉽게 용기를 잃지 않았다; 자기가 맡은 것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부지런하고 매우 끈기가 있는 일꾼이었다. 그에게는 "오라"라고 말하는 훌륭하고도 보기 드문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첫 번째로 개종시킨

나다니엘이 예수와 나사렛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논쟁하고자 하였을 때, 빌립의 효력적인 대답은 “와서 보라”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 청중들에게 “가라”—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라—고 훈계하는 독단적인 설교자가 아니었다. 그는 일을 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오라”—“나와 함께 가자; 내가 그 길을 당신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말로 대처해 나갔다. 그리고 그것은 가르침의 모든 형태나 위상에 있어서 언제나 효력 있는 기법이다. 부모들까지도 빌립으로부터 더 훌륭한 방법을 배울 수 있는데, 자기 자녀들에게 “가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라”라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너에게 좀 더 나은 길을 보여주고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139:5.9 (1557.3)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적응하지 못하는 빌립의 무능력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인들이 그에게 와서: “선생님,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잘 나타나고 있다. 빌립은 그러한 질문을 하는 이가 유대인이었다면 “오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외국인들이었으며, 빌립은 자기 상급자(上官)으로부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었으므로; 그가 생각할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는
우두머리인 안드레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으며, 그런
후에 둘이서 그리스인들을 예수께 데리고 갔다.
마찬가지로, 주(主)의 지시를 따라 신자(信者)들에게
설교와 세례를 주러 사마리아로 갔을 때, 그는 그들이
진리의 영을 받아들였다는 표시로 자기 손을 개종자들
머리 위에 얹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 일은 그때
모(母)교회를 대표하여 그의 일을 관찰하러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실행되었다.

139:5.10 (1557.4) 빌립은 주(主)의 죽음에 대하여 시험을 당하는
체험을 하였으며, 12사도의 재조직에 참여하였고, 왕국의
일을 위해 유대인들 이외의 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나아갔는데, 사마리아인들을 위한 그의 활동에
있어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의 훗날의 모든
수고들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이었다.

139:5.11 (1557.5) 빌립의 부인은 여인들 대원중에서 능률적인
회원이었고, 예루살렘 박해로부터 도주한 이후의
복음전파에서 자기 남편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의

부인은 두려움이 없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빌립의 십자가 밑에 서서 그에게 그의 살인자들에게까지도 기쁜 소식을 전파하도록 격려했으며, 그의 힘이 다하자, 그녀는 예수 안에서 신앙을 가짐으로 얻어지는 구원의 이야기를 낭송하기 시작하였고, 성난 유대인이 그녀에게 달려들었으며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을 때에야 비로소 잠잠하였다. 그들의 맏딸 레아는 그들의 일을 이어받았고 나중에 가서는 히에라폴리스의 저명한 여(女)선지자가 되었다.

139:5.12 (1558.1) 한 때 12사도의 사무장이었던 빌립은, 그가 가는 곳마다 혼들을 구제한, 왕국 안에서 막강한 사람이었다; 최후에는 자기 신앙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렸고 히에라폴리스에 묻혔다.

제 6 장. 정직한 나다니엘

139:6.1 (1558.2) 6번째이며, 주(主)가 직접 뽑은 자로서는 마지막이 되는 나다니엘은, 자기 친구 빌립에 의해 예수께로 안내되었다. 그는 여러 가지 사업관계로 빌립과 친분이 있었는데, 그와 함께 세례자 요한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139:6.2 (1558.3) 나다니엘이 사도로 참여하였을 때, 그는 25세였고 그 그룹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어렸다. 그는 일곱 명 가족 중에서 막내였고 미혼이었으며, 가나에서 함께 사는 나이 들고 허약한 부모의 유일한 부양자였는데; 그의 형들과 누나들은 결혼을 했거나 죽어서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나다니엘과 가룟 유다는 12명 중에서 가장 교육수준이 높았다. 나다니엘은 상인이 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139:6.3 (1558.4) 예수가 직접 나다니엘에게 별명을 지어 주신 일은 없었지만, 12사도들은 곧 그를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의미의 용어로 그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는 “교활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큰 장점이었다; 그는 정직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기도 하였다. 그의 성격상 단점은 자부심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가족, 도시, 명성, 민족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모든 것들은 그가 너무 지나치게 자랑하지만 았았다면, 칭찬 받을 만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나다니엘은 자기 개인적인 편견을 가지고 극단적으로까지 끌고 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자기 개인적 견해로 개별존재들을 미리 판단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예수를 만나 보기도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저하지 않고 하였다. 그러나 나다니엘은 자부심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하지는 않았다. 그는 예수의 얼굴을 일단 살펴보았을 때, 자기 태도를 바꾸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139:6.4 (1558.5) 여러 면에서 나다니엘은 12사도들 중에서 이상스러운 천재였다. 그는 사도이면서 철학자였고 공사가였지만, 매우 실천적인 공사가였다. 그는 한 동안은 심오한 철학에 젖어 있다가 또 얼마 동안은 보기 드문 익살스러운 유머를 즐기면서 왔다 갔다 하였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에는 그는 어쩌면 12명 중에서 가장 유능한 이야기꾼이었을 것이다. 예수는 심각한 일들은 물론, 사소한 일들에 있어서도 나다니엘의 강연을 듣기를 좋아하였다. 나다니엘은 날이 갈수록, 예수와 왕국은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결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139:6.5 (1558.6) 사도들 모두는 나다니엘을 사랑하고 존중하였으며, 그는 가롯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도들과 매우 잘 지냈다. 유다는 나다니엘이 그의 사도됨을

충분하리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며, 한 번은 무모하게도 예수께 몰래 가서 그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유다야, 너의 발걸음을 조심해라; 너의 직무에서 너무 넘어서지 말아라. 우리들 중에 누가 자기 형제를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겠느냐? 자기 자녀들이 일생의 심각한 일들에만 관여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다시 거듭하여 말하는데, 나는 육신을 가진 나의 형제들이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일생을 좀 더 풍성하게 갖게 하려고 왔다. 유다야, 이제 가서 너에게 맡겨진 일들이나 잘하고, 너의 형제인 나다니엘은 자신의 문제를 하느님과 해결하도록 혼자 내버려두어라.” 그리고 이 기억은, 다른 많은 비슷한 체험들과 함께, 가룟 유다의 자아-기만하는 가슴속에 오래 남아있었다.

139:6.6 (1559.1) 예수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멀리 떠나 있을 때, 사도들 사이에서 일들이 긴박해지고 복잡하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심지어 안드레까지도 그의 울적한 형제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할 때, 여러 번에 걸쳐서,

나다니엘이 약간의 철학이나 혹은 문득 떠오르는 유머로, 그것도 재미있는 유머로, 긴장감을 풀어주곤 하였다.

139:6.7 (1559.2) 나다니엘의 임무는 12사도들의 가족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그는 자주 사도들의 협의회에 결석을 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가 맡고 있는 가족들 중에서 병자가 생기거나 특별한 일이 생기면, 그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 가족을 방문하였기 때문이었다. 12사도들은 자기 가족의 안녕이 나다니엘의 손에 안전하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안심하며 지낼 수 있었다.

139:6.8 (1559.3) 나다니엘이 예수를 가장 존경했던 점은 그의 포용력이었다. 그는 사람의 아들의 관대한 마음과 관대한 동정심을 생각할 때마다 기운이 솟았다.

139:6.9 (1559.4) 나다니엘의 아버지(바돌로메오)가 오순절 직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후에 이 사도는 메소포타미아와 인도로 왕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하여 떠났다. 그의 형제들은, 한 때 그들의 철학가요 시인이며 익살꾼이었던 그의 생사를 다시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또한 왕국의 일에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었으며, 비록 그가 나중에 생긴 그리스도교 교회의

조직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주(主)의 가르침을 멀리 퍼뜨리는 일을 많이 하였다. 나다니엘은 인도에서 죽었다.

제 7 장. 마태 레위

139:7.1 (1559.5) 일곱 번째 사도인 마태는 안드레에 의해 선택되었다. 마태는 세금을 걷는 집안에 속하기도 하였고 세리(稅吏)이기도 하였지만, 그 자신은 자기가 살고 있던 가버나움에서 관세 징수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31세였고 결혼한 상태였으며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는, 사도 대원에 속해 있는 자로서는 유일하게 재산이 있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는 훌륭한 사업가였고, 사교술이 좋았으며,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주가 있었다.

139:7.2 (1559.6) 안드레는 마태를 사도들의 재정 대표로 임명하였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사도 조직체에 대한 회계 대리인이었고 홍보 대변인였다. 그는 인간 본성을 예리하게 판단하였고 매우 효과적인 선전원이었다. 그는 표현하기 어려운 개인성의 사람이었지만, 매우 열성적인 제자였고, 예수의 사명과 왕국의 확실성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는 갈수록 더 깊어진 사람이었다. 예수는 레위에게

별명을 주시지 않았지만, 그의 동료 사도들은 흔히 그를 “돈을 거두는 자”라는 말로 칭하였다.

139:7.3 (1559.7) 레위의 장점은 동기에 대한 전심(全心)으로의 헌신이었다. 세리인 자기가 예수와 그의 사도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는 그것은, 이전에 세금 징수원의 편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일으키는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사도들, 특히 시몬 젤로떼와 가롯 유다가 자기들 안에 있는 세리의 현존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마태의 약점은 안목이 짧다는 것과 일생을 물질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그는 세월이 가며 많은 진전을 보였다. 물론 그는 금고를 채우는 것이 그의 의무였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학습 시간에 많이 참석하지 못하였다.

139:7.4 (1559.8) 마태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주(主)의 용서하는 기질이었다. 그는 신앙이란 단지 하느님을 찾는 사업에서만 필요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하곤 하였다. 그는 왕국에 대해서 “하느님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말하기를 항상 좋아하였다.

139:7.5 (1560.1) 마태는 과거때문에 힘들어 했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잘 이길 수 있었고, 시간이 감에 따라 그의 연관-동료들도 세리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예수의 말들을 광범위하게 받아 적은 사도들 중의 하나로, 이 노트들은 나중에 이사도르가 기록한 예수의 말들과 행적들에 관한 서술문의 바탕으로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마태에 의한 복음서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139:7.6 (1560.2) 사업가이며 가버나움의 세관 징수원이었던 마태의 위대하고 유용한 일생은, 수천 명의 다른 사업가들, 공공 관리들, 정치가들, 그리고 다음에 오는 세대들까지, "나를 따르라"라는 주(主)의 말씀을 들으러 오도록 인도하는 매개자가 되었다. 마태는 실제로 명석한 정치가였지만, 예수께 지극히 충성스러웠고, 다가오는 왕국의 메신저들이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직무에 대단히 헌신하였다.

139:7.7 (1560.3) 12사도들 가운데에 마태의 현존은, 오래 전부터 자신들이 이미 종교적 위안의 혜택이 없다고 여겨 왔던 기죽고 버림받은 혼들에게 무리들에게 왕국의 문을 넓게 열어 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였다. 버림받고 절망에 빠진

남녀들이 예수의 말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으며, 예수는 그들 중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았다.

139:7.8 (1560.4) 마태는 신도들과 주(主)의 가르침을 방금 들은 사람들로부터 들어오는 헌납을 자유롭게 받아들였지만, 한 번도 공개적으로 군중들로부터 기금을 간청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정적인 일을 조용하고 개인적 방법으로 해나갔고, 대부분의 돈을 관심을 가진 신도중에서 좀 더 유복한 등급으로부터 걷었다. 그는 실천적으로 주(主)와 그의 사도들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 전체를 썼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예수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그의 이러한 관대함을 알지 못하였다. 마태는 예수와 사도들이 어쩌면 자기 돈을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여길까봐 두려워서 사도들의 기금으로 공공연하게 헌납하지 못하였다; 다른 신도들의 이름을 빌려 많이 기부하였다. 초기 시절에, 마태는 그들 속에서 자신의 현존이 다소 문제가 되었을 때, 자신의 돈으로 종종 그들의 일용 양식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받았지만, 유혹에 굴복되지 않았다. 세리에 대한 경멸의 증거들이 현시될 때는, 레위는 그들에게

자신의 관대함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열망으로 타올랐으나, 그는 항상 조용히 있도록 자신을 잘 다스렸다.

139:7.9 (1560.5) 한 주간 동안의 기금이 예산보다 모자랐을 때, 레위는 자주 자기 개인 재산에서 많이 빼서 쓰곤 하였다. 또한 가끔씩, 그는 예수의 가르침에 대단히 흥미를 느끼게 되었을 때, 필요한 기금이 걷히지 않아서 자기가 대신 개인적으로 그 기금을 충당해야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 남아 있기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레위는 많은 돈이 그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것을 예수가 조금이라도 깨달아주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러나 그는, 주(主)께서 이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하였다. 박해가 시작된 후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갔을 때, 마태에게는 실천적으로 동전 한 닢도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그가 그들의 후원자였다는 사실을, 사도들은 죽을 때까지 몰랐다.

139:7.10 (1560.6) 이러한 박해들로 인하여 신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을 때, 마태는 왕국의 복음을 설교하고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북쪽으로 여행하였다. 그는 예전의 사도 연관-동료들과 소식이 끊어졌지만, 설교하고

세례를 주면서 시리아, 카파도치아, 갈라시아, 비티니아, 트레스를 지나갔다. 리시마키아에 있는 트레스에서는, 어떤 비(非)신자인 유대인이 로마 병정과 결탁하여 그를 죽이도록 음모를 꾸몄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이 세리는, 얼마 전에 이 세상에서 살다 가신 주(主)의 가르침으로부터 확실하게 배운 구원의 신앙 안에서 승리의 죽음을 맞이하였다.

제 8 장. 도마 디디머스

139:8.1 (1561.1) 도마는 여덟 번째 사도였고, 빌립에 의해 선택되었다. 후반기에 그는 “의심하는 도마”라고 알려지게 되었지만, 동료 사도들은 그를 상습적으로 의심하는 자라고는 거의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논리적이고 회의적인 마음을 소유하였지만, 그의 용기 있는 충성심은 그를 잘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어리석은 회의론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였다.

139:8.2 (1561.2) 도마가 사도들 중의 하나가 되었을 때, 그는 29세였고 결혼을 해서 4명의 자녀들이 있었다. 그는 전에는 목수와 석공의 일을 했었으나, 나중에는 어부의 일을 하며 타리케아에서 거주하였는데, 그곳은

갈릴리해로 흘러가는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는 이 작은 마을에서 영도하는 시민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는 교육은 많이 받지 못하였지만, 예리하고 이성적인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티베리아스에서 사는 훌륭한 부모를 모시고 있었다. 도마는 12사도들 중에서 진정으로 분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사도 그룹 중에서 실제 과학자였다.

139:8.3 (1561.3) 도마의 어린 시절은 불행하였다; 그의 부모는 결혼 생활에서 원만치 못했고, 이것이 어른에 대한 도마의 체험에 반영되었다. 그는 매우 사귀기 힘들고 다투기를 잘하는 기질을 가지면서 자라났다. 그의 부인까지도 그가 사도들에게 참여하게 되어 기뻐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비관적인 남편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다는 생각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도마는 또한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와 평화롭게 지내기가 힘들었다. 베드로는 처음에 도마로 인하여 매우 화가 나서, 자기 형인 안드레에게, 도마는 “모질고, 못 생겼으, 항상 의심만 하는 자”라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의 연관-동료들은 도마를 더 잘 알게 될수록, 그를 더욱 더 좋아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에게서 매우 정직하고 굽히지

않는 충성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완전하게 진지하였으며, 물을 필요도 없이 참되었다, 허지만 본성적-태생이 흠잡는 사람이었으며, 자라면서 실제 비관론자가 되었다. 그의 분석적인 마음은 의심으로 저주 받은 듯했었다. 그가 12사도들과 관계적-연합하게 되었을 때는, 그의 연관-동료 사람들에게서 순식간에 신뢰를 잃어갔고, 따라서 예수의 고상한 성격과 접촉하기에 이르렀다. 주(主)와의 이런 관계는 바로 도마의 모든 기질을 변환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연관-동료들에 대한 그의 정신적 반응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139:8.4 (1561.4) 도마의 큰 장점은 그의 굉장한 분석적 마음에 굽힐 줄 모르는 용기—그가 일단 마음을 정했을 때에는—가 더해진 것이었다. 그의 큰 약점은 남을 신용하지 않는 의심이었는데, 그것은 육신 속에서의 삶 동안에는 충분히 극복되지 못하였다.

139:8.5 (1561.5) 12사도의 조직 안에서 도마는 여행일정을 세우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사도 대원들의 일과 움직임들에 대한 유능한 관리자였다. 그는 훌륭한 행정자였고 우수한 사업가였지만, 자신의 변화무쌍한

기분에 의해 손해를 많이 보았는데; 하루는 이런 사람이었다가 다음 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가 사도들의 일원이 되었을 때, 그는 시무룩하게 우울해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수와 사도들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이 병적인 내면-성찰이 많이 치료되었다.

139:8.6 (1561.6) 예수는 도마와 매우 많이 즐기셨고, 그와 여러 번 긴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셨다. 사도들 가운데서 그의 현존은, 모든 정직한 의심품은 자들에게 큰 위안이었고, 많은 고민하는 마음들을, 그들이 비록 예수의 가르침에서의 영적 그리고 철학적 위상에 대하여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다 해도, 왕국 안으로 들어오도록 용기를 주었다. 12사도 안에 도마의 회원관계가 끼어 있었다는 것은, 예수가 정직하게 의심만 하는 자들도 사랑했다는 뚜렷한 선언이었다.

139:8.7 (1562.1) 다른 사도들은 예수의 충만한 개인성의 어떤 특별하고 탁월한 특색 때문에 그를 존경하였지만, 도마는 비할 바 없이 균형을 갖춘 주(主)의 성격 때문에 그를 존경하였다. 도마는, 그렇게 정답게 자비스러우면서도 또한 확고하게 공정하고 공평한; 그렇게 엄하면서도

절대로 완고하지 않은; 그렇게 잔잔하면서도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은; 그렇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동정적이면서도 절대로 참견하거나 권위적이 아닌; 그렇게 강하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부드러운; 그렇게 긍정적이면서도 절대로 격렬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은; 그렇게 부드러우면서도 절대로 우유부단하지 않은; 그렇게 순수하고 순진하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깨끗하고, 적극적이고, 강력한; 그렇게 진정으로 용기가 있으면서도 절대로 성급하거나 무모하지 않은; 그렇게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자연을 숭배하는 모든 경향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로운; 그렇게 익살스럽고 그렇게 장난기가 있으면서도 경망스럽거나 천박하지 않은 예수를 점점 더 존경하였고 받들었다. 이렇게 비할 데 없는 균형 잡힌 개인성에 도마는 그토록 매료되었다. 그는 아마도 12명 중에서 누구보다도 더, 예수에 대한 최고의 지적 납득과 개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즐긴 것 같다.

139:8.8 (1562.2) 12사도 협의회에서 도마는 언제나 조심스러웠고, 안전 제일 정책을 내세웠지만, 만약에 그의 보수적 의견이 부결되거나 퇴짜를 맞으면, 결정된 계획의 실행에 그가 항상 제일 먼저 두려움 없이 뛰어 들었다. 그는 어떤

프로젝트들이 무모하고 외람된 것으로 여기면 반대하고 또 반대하곤 하였다; 격렬한 가운데 끝날 때까지 논쟁을 하곤 하였지만, 안드레가 그 제안을 투표에 붙여서 12사도들이 그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였던 안건을 통과시키고 나면, 도마가 제일 먼저 “갑시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훌륭한 실패자였다. 그는 불평을 붙잡고 있거나 상처받은 감정도 품지 않았다. 그는 예수가 위험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에 여러 번 반대하였지만, 주(主)께서 그러한 모험을 택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동지들, 어서 갑시다. 우리 함께 가서 주(主)와 함께 목숨을 바칩시다.”라는 용기 있는 말을 제일 먼저 하면서 사도들을 집결시키는 사람은 항상 도마였다.

139:8.9 (1562.3) 도마는 어떤 면에서는 빌립과 비슷하였다; 그도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였지만, 겉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표현들은 전반적으로 다른 지적인 작용들에 기반을 둔 것들이었다. 도마는 단순히 회의적(懷疑的)이 아닌, 분석적인 사람이었다. 개인적 육체적 용기에 관한 한, 12사도들 중에서 그가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다.

139:8.10 (1562.4) 도마는 매우 힘든 날들을 어느 정도 겪었는데; 그는 종종 우울하였고 풀이 죽어 있었다. 그가 9살이었을 때, 그의 쌍둥이 여동생을 잃은 것이 어린 시절에 많은 슬픔을 가져다주었고, 그것은 후반기의 일생의 변덕스러운 성격적 문제들에 부가되었다. 도마가 풀이 죽게 되면, 어떤 때에는 나다니엘이, 어떤 때는 베드로가, 그리고 알패오의 쌍둥이 중의 하나가, 그의 원기를 회복시키는데 자주 도움을 주었다. 그가 가장 억눌렸을 때, 불행하게도 그는 예수와 직접 대면하는 것을 항상 피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주(主)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다 알고 계셨고, 의심들로 인해 그가 그런 식으로 억압되고 괴로움을 당할 때 자기 사도를 위해 납득하는 동정심을 가지셨다.

139:8.11 (1562.5) 이따금씩 도마는 하루나 이틀 동안 혼자 떠나 있을 수 있도록 안드레로부터 허락을 받곤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방식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곧 알았다; 그가 낙심하였을 때는 일을 하면서 연관-동료들과 가까이 지내며 남아 있는 일이 상책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의 감성적인 일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지 간에, 그는 사도로 항상 남아 있었다.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 오면, “갑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항상 도마였다.

139:8.12 (1562.6) 도마는 의심을 품고, 그것들을 대면하고, 극복하는 인간의 큰 본보기였다. 그는 마음이 넓었다; 트집을 잡는 비평가가 아니었다. 그는 논리적인 사고자였으며; 예수와 그의 연관-동료 사도들에 대하여 엄밀하게 시험하는 역할을 하였다. 만약 예수와 그의 일이 참된 것이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완결까지 도마 같은 사람을 붙들어 놓을 수 없었을 것이었다. 그는 사실에 대한 예리하고 확실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사기나 속임수의 모습이 나타났다면, 도마는 처음 순간에 그들 전부를 버렸을 것이었다. 과학자들은 예수와 땅에서의 그의 일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납득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진정한 과학자적 마음을 가진 한 사람—도마 디디머스—이 주(主)와 그의 인간 측근동료들과 함께 살았고 일을 하였으며 나사렛 예수를 믿었다.

139:8.13 (1563.1) 도마는 심판과 십자가형이 진행되는 동안 매우 힘든 시간을 겪었다. 그는 한동안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지만, 그의 용기를 다시 찾아서 사도들과 합하였고

갈릴리 해에서 예수를 환영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 그는 의심으로 인한 억눌림에 한동안 굴복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의 신앙과 용기를 다시 찾았다. 그는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하였으며, 박해로 신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자 그는 왕국의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고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키프러스, 크레테, 북아프리카 해안, 시실리로 갔다. 그리고 도마는 로마 정부의 관리에 의해 체포되어 말타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설교와 세례 주는 일을 계속하였다. 그가 죽기 불과 몇 주일 전에 그는 예수의 일생과 가르침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었다.

제 9-10 장. 야고보와 유다 알패오

^{139:9.1 (1563.2)} 게라사 가까이에서 사는 쌍둥이 어부들인, 알패오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유다는 9번째와 10번째의 사도들로서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에 의해 선택되었다. 그들은 26세였고 결혼을 했으며, 야고보는 3명의 자녀들을, 유다는 2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다.

^{139:9.2 (1563.3)} 이들 두 평범한 어부들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 그들은 주(主)를 사랑하였으며 주(主)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였지만, 그의 강연을 중단시키는 질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은 동료 사도들의 철학적 토의나 혹은 신학적 논쟁에 대해 거의 납득하지 못하였지만, 자신들이 그렇게 막강한 사람들 사이에 끼여 있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향유하였다. 이들 두 사람들은 겉모습에서나, 정신적 특징에서나, 영적 인식의 정도에서 서로 거의 동일하였다. 한 사람을 묘사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었다.

139:9.3 (1563.4) 안드레는 그들에게 군중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겼다. 그들은 설교 시간에 안내원들의 우두머리들이었으며, 사실상으로 12사도들의 시중을 들고 심부름을 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빌립의 물자공급으로 도왔고, 나다니엘을 위해서는 가족들에게 돈을 전달해 주었으며, 항상 사도들의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있었다.

139:9.4 (1563.5) 보통사람들로 이루어진 군중들은, 그들과 똑같은 두 사람들이 사도들 안에 끼어 있다는 것을 보고 매우 용기를 얻었다. 이들 평범한 쌍둥이들이 사도로 받아들여졌다는 바로 그 사실이, 겁쟁이 신도들을

왕국으로 불러들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보통사람들은 자신들과 아주 비슷한 공식 안내원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관리되어진다는 관념에 더욱 친근감을 가졌다.

139:9.5 (1563.6) 또한 다대오와 레비우스라고도 불렸던 야고보와 유다는 강점은 물론 약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제자들이 그들에게 붙인 별명은 평범하다는 것을 뜻하는 좋은 의미를 가진 용어였다. 그들은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들”이었는데; 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그 사실을 기분 좋게 받아들였다.

139:9.6 (1563.7) 야고보 알패오는 주(主)의 단순함을 특별히 사랑하였다. 이들 쌍둥이들은 예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 자신들과 주(主)의 가슴 사이에 동정심 가득한 끈으로 묶여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높은 차원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존경을 담아서 말한다 해도, 우둔하다고 불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본성 안에서 실제적인 체험을 가졌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들이었고 왕국의 동료들이었다.

139:9.7 (1564.1)

유다 알패오는 주(主)의 허식 없는 겸손으로 인하여 예수에게 끌렸다. 그러한 개인적 위엄을 동반한 그러한 겸손은 유다에게 큰 매력을 주었다. 예수가 자신의 비범한 행동들에 관해서 항상 침묵을 지키는 사실은, 이 단순한 자연적 자녀들에게 크나 큰 감명을 주었다.

139:9.8 (1564.2)

쌍둥이들은 성격이 좋았으며, 단순한 마음을 가진 조력자였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하였다. 예수는 재주가 한 가지뿐인 이 젊은이들을 왕국에서의 그의 측근동료라는 명예로운 지위에 받아 들였는데, 왜냐하면 공간 세계들에 말할 수 없이 많은 그러한 단순하고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는 혼들이 있고, 그들을 마찬가지로 그가 자기가 퍼부어 주는 진리의 영과 자신과 함께 하는, 활동적이고 믿음을 가지는 동료관계 안에서 환영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예수는 보잘것없는 것을 경멸하지 않았으며, 단지 악과 죄를 경멸하였다. 야고보와 유다는 작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한 신실했다. 그들은 단순하고 무지하였지만, 또 한 편으로는 도량이 넓었고, 친절하였으며, 관대하였다.

어떤 한 부자가 전도자(前導者)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였을 때, 그에게 재산을 처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한에는 받아 줄 수 없다고 주(主)가 그를 거절하였던 날, 이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들이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쌍둥이들이 예수의 조언자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오직 신성한 제도—하늘의 왕국—만이 그러한 평범한 인간 기반 위에 언제나 설립되어 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와의 관계적-연합에서 단지 한두 번 공개적으로 예수에게 질문을 했었다. 주(主)께서 자신을 세상에게 공공연히 드러내 보이시겠다고 얘기했을 때, 유다가 한 번 예수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12명 사이의 그들만의 비밀이 없어진다는 것에 실망을 하게 되어 그는 이렇게 대담하게 물었다: “그렇지만, 주(主)여, 당신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공표하시면, 우리에게는 당신의 선함에 대한 특별한 현시활동을 어떤 식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까?”

139:9.11 (1564.5) 그 쌍둥이들은 끝까지, 재판과 십자가 처형의 어두운 날들까지, 그리고 절망에서까지도 성실히 봉사하였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신앙을 한 번도 잃지 않았으며, 그들은(요한을 제외하고) 그의 부활을 믿었던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왕국의 설립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했다. 그들의 주(主)가 돌아가신 직후에, 그들은 가족에게로 돌아가 고기잡이를 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끝났다. 그들에게는 더욱 까다로운 왕국의 전투에서 버티며 나아갈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우주를 통치하는 조물주, 하느님의 아들과 4년 동안을 가깝고도 개인적 관계적-연합을 이룬 명예와 축복을 받았음을 의식하며 살다가 죽었다.

제 11 장. 열심당원 시몬

139:11.1 (1564.6) 시몬 젤로데는 11번째 사도로, 시몬 베드로에 의해 선택되었다. 그는 훌륭한 조상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가버나움에서 자기 가족과 함께 살았다. 그는 사도가 되었을 때 28세였다. 그는 격렬한 선동가였으며,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을 내뱉는 사람이었다. 그는 열심당이라는 애국적 조직에 자신의 모든 관심을 쏟기 전까지는 상인으로 일했었다.

139:11.2 (1564.7) 시몬 젤로떼는 사도 집단의 기분전환과 이완-휴식을 담당하였으며, 12사도들의 운동 생활과 오락 활동들에 대한 매우 효율적인 조직가였다.

139:11.3 (1564.8) 시몬의 강점은 그의 영감(靈感) 어린 충성심이었다. 사도들은 왕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못하여 머뭇거리는 남자나 여자를 발견하면, 시몬을 부르곤 하였다. 모든 의심들을 해결하고, 모든 망설임을 없애고, 새로운 혼이 "믿음으로 인한 해방과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태어나게 도와주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하느님의 신앙을 통한 구원의 이 열성적인 주창자에게는, 대개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139:11.4 (1565.1) 시몬의 큰 약점은 그의 굳어버린 물질적 마음에 있었다. 그는 유대의 민족주의자로부터 영적 마음을 가진 국제주의자로 자신을 빨리 전환시킬 수 없었다. 4년의 기간은, 그러한 지적이고 감정적인 변환을 가져오기에는 너무 짧았다. 그러나 예수는 언제나 그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였다.

139:11.5 (1565.2) 시몬이 예수를 그토록 탄복한 한 가지는 주(主)의
고요함, 그의 확신, 평정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침착성이었다.

139:11.6 (1565.3) 비록 시몬이 과격한 혁명론자였고, 동요를
일으키는 두려움 없는 선동자이기는 했었지만, 그가
"땅에서의 평화와 사람들 가운데 선한 뜻"을 외치는
강력하고 효력적인 설교자로 되기까지, 그는 차차 자신의
불같은 성격을 완화시켜 나갔다. 시몬은 굉장한
토론가였으며; 논쟁하기를 매우 좋아하였다. 그리고
법적인 마음을 가진 학식이 있는 유대인이나 혹은 지적인
퀘변의 그리스인들과 상대를 해야 할 경우에, 그러한
임무는 항상 시몬이 맡았다.

139:11.7 (1565.4) 그는 본성적으로 반항자였고, 훈련에 의한
인습을 타파하는 주창자였지만, 예수는 그를 하늘의
왕국의 좀 더 높은 개념들로 끌어 올려 주었다. 그는 항상
자신을 항의의 집단으로 정체성을 확인하였었지만,
이제는 영과 진리의 무제한적이고 영원한 진보, 그 진보의
집단으로 합쳤다. 시몬은 강한 충성심과 따뜻한 개인적
헌신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예수를 아주 깊이 사랑하였다.

139:11.8 (1565.5) 예수는 사업하는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 낙관론자, 비관론자, 철학자들, 회의론자, 세리들, 정치가들, 애국자들과 함께 그 자신을 정체성 확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139:11.9 (1565.6) 주(主)는 시몬과 많은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 열렬한 유대 민족주의자를 국제주의자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였다. 예수는 시몬에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계층을 개선시키려고 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자주 말씀해 주었지만, 그는 항상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그것은 하늘의 왕국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봉헌해야만 한다. 우리의 일은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정부의 대사가 되는 일이며, 우리 자신들에 관한 당면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신임장을 가진 우리가 그 정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신성한 아버지의 뜻과 성격을 대표하는 일에만 관심을 쏟아야 한다.” 시몬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주(主)의 가르침이 의미하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점차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139:11.10 (1565.7) [139:11.10]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하여 분산된 후에, 시몬은 일시적인 은퇴기간을 가졌다. 그는 문자 그대로 무너졌다. 그는 민족주의적인 애국자로서 예수 가르침을 좇는 일을 포기했고; 이제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절망에 빠졌으나, 몇 년 안에 그는 자신의 소망들을 다시 찾아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러 앞으로 나아갔다.

139:11.11 (1565.8) [139:11.11] 그는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나일 강을 따라 올라가며 일을 한 후, 아프리카의 심장부로 들어가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설교하고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늙고 쇠약해질 때까지 일을 하였다. 그는 아프리카의 심장부에서 죽었고 거기에 묻혔다.

제 12 장. 가롯 유다

139:12.1 (1565.9) 가롯 유다는 12번째 사도로서, 나다니엘에 의해 선택되었다. 그는 남부 유대에 있는 작은 도시인 가롯에서 태어났다. 그가 소년 시절이었을 때 그의 부모는 여리고로 이사를 갔고, 그가 세례자 요한의 설교와 일에 흥미를 느끼기 전까지는, 그곳에 살면서 자기 아버지의 여러 가지 사업에 종사하였다. 유다의 부모는 사두개인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아들이 요한의 제자로 참가하자, 그를 가족에서 쫓아내 버렸다.

139:12.2 (1566.1) 나다니엘이 유다를 타리케아에서 만났을 때, 그는 갈릴리해의 하류 끝에 있는 생선-건조 사업체에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었다. 그는 사도들의 일원이 되었을 때, 30세였고 결혼 전이었다. 그는 아마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학식이 높았을 것이며, 주(主)의 사도 대원들 중에서 유일한 유대 사람이었다. 유다는 개인적 강점을 나타내는 아무런 특출한 특색이 없었지만, 겉으로 나타나도록 많은 교양에서의 특색과 그리고 훈련에서의 습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훌륭한 사고자(思考者)였지만, 언제나 진정으로 정직한 사고자는 아니었다. 유다는 자신을 실제로 납득하지 못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실제로 진지하지 않았다.

139:12.3 (1566.2) 안드레는 유다를 12사도의 회계로 임명하였는데, 그 지위는 그에게 매우 어울리는 자리였고, 그가 주(主)를 배반하기 전 시간까지는 자기 책임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실행해나갔다.

139:12.4 (1566.3)

일반적으로 호감을 주고 절묘하게 매력적인 주(主)의 성격 이외에, 특별히 유다가 예수를 탄복했던 특색은 없었다. 유다는 결코 갈릴리인 들인 연관-동료들에 대한 자신의 유대 사람으로서의 편견을 넘어설 수 없었다; 예수까지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속으로 비판하였다. 11명의 사도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였던 완전한 사람인 그를, 자아-만족이 가득한 이 유대 사람은 그의 진심에서 감히 자주 비판하였다. 실제로 그는, 예수에 대하여 수줍고 자기 자신의 힘과 권한을 주장하기를 약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139:12.5 (1566.4)

유다는 훌륭한 사업가였다. 몇몇 사도들의 허둥지둥하는 사업 방식을 언급하지 않고라도, 예수와 같은 그런 이상주의자의 재정관련사를 관리하는 데에는 재치와 힘 그리고 참을성이 요구되었다. 유다는 앞을 멀리 내다보는 유능한 재정가로서, 실제로 훌륭한 집행자였다. 그리고 그는 조직에 대하여 까다로운 사람이었다. 12사도들 중 어느 누구도 유다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들이 볼 수 있는 한에서는, 가룟 유다는 비길 데 없는 회계였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고, 충성스러운 (가끔씩 비판적이긴

했어도) 사도였으며,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사람이었다. 사도들은 유다를 사랑하였다; 그는 실제로 그들 중의 하나였다. 그가 예수를 믿었던 것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는 그가 온 가슴을 다 바쳐 실제로 주(主)를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있다. 유다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말이 옳다는 것을 잘 나타내 준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죄와 사망의 길들에 이르도록 유쾌하게 조절하는 평화스러운 속임수에 희생물이 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유다는 항상 재정적으로 자기 주(主)와 동료들에게 충실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돈이 원인이 되어 그가 주(主)를 배반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139:12.6 (1566.5) 유다는 현명하지 못한 부모의 외아들이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에게 지나친 풍요로움을 주었고, 그의 응석을 다 받아주었다; 그는 버릇없는 아이였다. 그가 자라나면서, 자신의 자아-중요에 대한 관념이 더욱 깊어져 갔다. 그는 불쌍한 실패자였다. 그는 공정함에 대하여 산만하고 왜곡된 관념들을 가졌으며; 미움과 의심에 빠져 있었다. 친구들의 언행(言行)을 오해하는데 있어서 숙련자였다. 유다는 자기 일생을 통하여,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복수를 하는 습관을 길러 갔다. 그의 가치관들과 충성심의 의식에는 결함이 있었다.

139:12.7 (1566.6) 예수에게 있어서 유다는 신앙에 대한 모험이었다. 처음부터 주(主)는 이 사도의 약점을 납득하고 계셨으며, 그를 동료관계로 받아들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아셨다. 그러나 하느님의 아들의 본성은, 모든 창조된 인간들에게 구원과 생존의 충분하고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예수는, 왕국에 대하여 창조체가 제공하는 헌신이 진지하고 전심으로 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의심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간들의 심판자는 의심스러운 그 후보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변치 않는 실천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필사자들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세상들에서 주시하고 있는 자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였다. 영원한 생명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있다; "누구든지 들어 갈 수 있으며"; 거기에는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신앙 이외에는 어떤 제약들도, 분별된-자격들도 없다.

139:12.8 (1567.1) 이것이 바로 예수가 유다로 하여금 끝까지 계속 나가도록 허용했으며, 이 약하고 혼동하는 사도를

변환시키고 구하려는 가능한 모든 일을 항상 다하고 있었던 이유였다. 그러나 빛이 정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빛은 혼 안에서 어둠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왕국에 대한 예수 가르침에 있어서 유다가 지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다른 사도들처럼 영적 특성을 갖는 데에 있어서는 발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영적 체험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개인적 발전을 하는 데 실패하였다.

139:12.9 (1567.2) 유다의 개인적 실망은 점점 더 커갔으며, 결국에는 분개심의 희생물이 되었다. 그의 감정들은 여러 번 상처를 받았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과 주(主)까지도 비정상적으로 점점 더 많이 의심하게 되었다. 이윽고 그는, 그것이 비록 주(主)를 배반하는 것과 관계되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복수를 할 수 있는 일이면 어떤 일도 불사하겠다는 관념에 사로 잡혔다.

139:12.10 (1567.3) [139:12.10] 그러나 이러한 사악하고 위험한 관념들은, 감사하는 가슴으로 가득한 한 여인이 예수의 발아래 값진 향료를 부어 주기 전까지는, 확실한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 유다에게는 그런 행동이 낭비로

여겨졌으며, 자신의 공개적인 반론이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예수에 의해 묵살되었을 때, 그것은 그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벅찬 것이었다. 그 사건은 축적되어 왔던 미움, 상처, 원한, 편견, 질투, 평생의 복수의 실천을 결정짓게 하였고, 그는 누구에게 인지는 모르지만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의 불행한 일생의 비열한 드라마에서 그의 모든 악의 본성이 가장 죄가 없는 한 사람에게로 맞추어졌는데, 그것은 그가 진보적인 빛의 왕국으로부터 본인이 자아-선택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에피소드에서 예수가 주연(主演)의 인물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139:12.11 (1567.4) [139:12.11] 주(主)는 사적으로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그가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경고하였지만, 신성한 경고들은 양심을 품고 있는 사람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대개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는 유다가 그릇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의 도덕적 자유를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하였다. 큰 시험의 날이 마침내 다가왔다. 분개심의 아들은 실패하였다; 과장되어진 자아-중요시의 비열한 거만함과

복수심에 찬 마음의 비열한 명령에 굴복해서, 빠른 속도로 혼란과 절망과 타락 속으로 빠져들었다.

139:12.12 (1567.5) [139:12.12] 그런 후 유다는 그의 주님인 주(主)를 배반하는 비열하고 부끄러운 음모에 들어가서 흉악한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하였다. 그는 자기 분노로 인한 반역적인 배반을 하는 동안, 잠시 수치심과 후회를 체험하였고, 이렇게 제 정신이 있는 기간 동안에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서의 변명으로, 예수가 마지막 순간에 그의 힘을 발휘하여 그 자신을 구해낼 것이라는 관념을 약하게 인식하였다.

139:12.13 (1567.6) [139:12.13] 비열하고 죄 많은 일이 모두 수행된 후, 오랫동안 품어온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기 친구를 은 30개를 받고 가볍게 팔아넘길 것을 생각했던 이 변절자는, 필사자 실존의 실체로부터 도망—자살을 함으로써 자신의 드라마의 마지막 장으로부터 급하게 빠져나갔다.

139:12.14 (1567.7) [139:12.14] 11명의 사도들은 공포에 사로잡혔고 너무 놀랐다. 예수는 이 배반자를 오직 동정하였을 뿐이다.

세계들은 유다를 용서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멀리-퍼진 우주에 두루 그의 이름은 피하게 되었다.

제 140 편 열 두 사도의 성직 임명

140:0.1 (1568.1) 서기 27년 1월 12일 일요일 정오 직전에, 예수는 왕국의 복음을 전할 대중 전도자들로 임명하기 위해 사도들을 불러 모았다. 사도들은 어느 때든지 부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그날 아침에도 고기를 잡으러 호숫가로부터 멀리 나가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은 그물 손질과 고기잡이 도구의 수선 작업을 하며 호숫가 근처에 머물러 있었다.

140:0.2 (1568.2) 예수는 호숫가로 내려가면서 사도들을 부르셨는데, 첫 번째로 호숫가 근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안드레와 베드로를 불러 들였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인 세베대와 함께 근처에 있는 배에서 그물 손질을 하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 예수는 나머지 사도들도 두 사람씩 불러 열두 명을 다 모아 가버나움 북쪽의 산지로 가서 그들의 공식적인 임명식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140:0.3 (1568.3) 이번에는 열 두 사도들 모두가 침묵을 지켰으며; 베드로조차 사색에 잠긴 마음가짐으로 있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때가 드디어 도래한 것 이었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주(主)를 대신하는 성스러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적 봉헌과 집단적 봉헌의 엄숙한 의식에 참여하려고 주(主)와 함께 떠나고 있었다.

제 1 장. 예비 지침

140:1.1 (1568.4) 정식 임명 봉사에배에 앞서서, 예수는 사도들을 자신의 주위에 앉히고 말씀하였다: “나의 형제들아, 왕국이 도래하였다. 나는 너희를 아버지께 왕국의 대사로 현시하기 위해 여기에 따로 불렀다. 너희들 중 일부는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왕국에 대한 나의 가르침을 회당에서 이미 들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갈릴리 바다 근처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왕국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워 왔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 왕국에 대해 너희에게 좀 더 가르치고자 한다.

140:1.2 (1568.5) “내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자녀들의 가슴속에 곧 세우시게 될 새로운 왕국의 영토는 영속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행하려는 이들의 가슴속에서는 그의 주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겠는데, 나의 아버지는 유대인의 하느님이 아니시고 이방인의 하느님도 아니시다. 동쪽으로부터 그리고 서쪽으로부터 많은 이들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와 너희와 자리를 함께 하겠지만, 아브라함의 많은 자녀들은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통치하는 아버지의 영의 이러한 새로운 형제신분에 참여하기를 거절할 것이다.

140:1.3 (1568.6) “이 왕국의 힘은 군대의 강한 힘에 있지 않고 부(富)의 막강함에 있지도 않으며, 오히려 이 하늘왕국의 거듭난 백성들, 하느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가르치고 가슴을 지배하는 신성한 영의 영광에 있다. 이것은 사랑으로 맺어지는 형제신분인데 그 안에서는 정의(正義)가 지배하며, 다음과 같은 함성소리가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평화가 그리고 모든 이들 위에는 선한 뜻이 이루어 질것이다. 너희가 곧 선포하러 나가게 될 이 왕국은, 모든 선한 이들의 바램이요 온 땅의 소망이며 모든 선지자들의 지혜로운 약속들에 대한 성취이다.

140:1.4 (1569.1) “그러나 나의 자녀들아, 너희와 또한 너희를 따라서 이 왕국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든 이들에게는

엄중한 시험이 앞에 가로 놓여있다. 오직 믿음만이 너희가 그 관문을 통과하게 하겠지만, 너희가 신성한 교제를 나누는 진보적인 일생 속에서 계속하여 상승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내 아버지의 영의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겠는데, '주님, 주님'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140:1.5 (1569.2) "이 세상에서 너희가 전할 말씀은: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찾는 동안에, 영원한 생존에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이 그것과 함께 너희에게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의 왕국은 힘을 밖으로 나타내거나 또는 꼴사나운 실증을 통하여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왕국을 전파하려 나가게 될 때, '왕국이 여기 있다' 또는 '왕국이 저기 있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인데, 왜냐하면 너희가 전할 이 왕국은 너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140:1.6 (1569.3)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왕국 안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사명활동자가 되어야만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형제들의 시중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일단 하늘왕국 시민으로 받아들여지고 나면, 너희는 더 이상 하인이 아니며 아들,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리하여 이 왕국은,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이가 아버지를 알고 내가 선포하러 온 구원의 진리를 믿게 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진보를 이룩할 것이다. 이미 왕국이 가까이 이르렀으며, 여기 있는 너희들 중의 일부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주권이 큰 힘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140:1.7 (1569.4) “그리고 너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것, 평범한 열두 명으로 이루어진 이 미약한 출발이, 결국에는 온 땅이 아버지를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찰 때까지 배가되고 불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음을 알고 왕국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은, 너희가 전하는 말씀 보다는 오히려 너희가 행하는 삶을 통해서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살면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내가 떠났을 때 세상에서 나를 나타내는 엄숙한 책임감을 너희 혼속에 갖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예수는 말씀을 마친 후에 일어났다.

제 2 장. 성직 임명

140:2.1 (1569.5) 예수는 왕국에 관한 가르침을 방금 받은 사도들로 하여금 자기 주위에 원을 그리며 무릎을 꿇게 하였다. 그런 다음 주(主)는 가롯 유다로부터 시작하여 안드레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사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그는 사도들을 모두 축복한 후에, 손을 내 뻗어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셨다:

140:2.2 (1569.6)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메신저들인 이들을 이제 당신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아온 것처럼, 저를 대신하여 내보내기 위해 이 세상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이 열 두 명을 택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또 함께 했던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고 또 함께 하여 주소서. 그리고 아버지시여, 다가오는 왕국의 모든 관련사들을 저들의 손에 맡겼사오니,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이라면, 저는 왕국을 위한 저들의 수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좀 더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을 주심을 아버지께 다시 감사드리며, 아버지께서 제게 맡기신 일을 완결하는 동안 저들을 당신의 보호 아래 맡깁니다.”

140:2.3 (1570.1) **예수가 기도를 완결하였을 때 사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각자의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까지도 한동안 감히 고개를 들어 주(主)를 바라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 명씩 나아가서 예수를 포옹했을 뿐, 아무도 말이 없었다. 천상 존재들의 무리단이 이 엄숙하고 성스러운 광경—한 우주의 창조자께서 사람의 신성한 형제신분의 관련사들을 인간 마음의 지도 아래에 맡기시는—을 내려다보고 있는 동안, 그 곳은 깊은 침묵에 싸여 있었다.**

제 3 장. 성직 임명 설교

140:3.1 (1570.2) **그런 다음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 왕국의 대사(大使)들이며,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진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제 너희는 어두운 세상의 무지한 생명들 가운데에 있지만,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깨우친 다른 시민들이 된 사람들이다. 너희가**

이 시간 이전처럼 사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이제부터는 좀 더 나은 일생의 영광을 맛본 자로서 그리고 새롭고 더 나은 그 세계의 주권자의 대사로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야만 한다. 제자보다는 선생에게 더 많은 것이 기대된다; 하인보다는 주인에게 더 많은 것이 요구된다. 하늘왕국의 시민들에게는 이 세상이 규정하는 시민들보다 더 많은 것이 요구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려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듯이,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를 대신하기 위해 택함을 받았다; 나의 대변인인 너희들에게는, 공간 세계들의 필사자 삶에 대한 나의 관념이 반영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계시하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일생 속에서 내가 예증하는 그 가르침들과 실천한 것들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이다.

140:3.2 (1570.3)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좇아,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에게는 해방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병든 이들에게는 치료함을 선포하도록,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절망 속에 있는 나의 자녀들을 보거든, 너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

140:3.3 (1570.4) “영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은 행복이 있으니,
하늘의 왕국의 보물이 저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140:3.4 (1570.5) “의(義)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풍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40:3.5 (1570.6) “온유한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140:3.6 (1570.7) “가슴이 청결한 자는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하느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140:3.7 (1570.8) “또 그 외에도, 영적 위로와 약속을 주는 이와 같은
말들을 내 자녀들에게 말해 주어라:

140:3.8 (1570.9) “애통하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슬피 우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기쁨의 영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140:3.9 (1570.10) “금홀히 여기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금홀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140:3.10 (1570.11) “화평케 하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하느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140:3.11 (1570.12)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하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쁨으로 향유하고 넘치도록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140:3.12 (1570.13)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내보낼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만들겠느냐? 그렇게 된 후로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140:3.13 (1570.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가 감추어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촛불을 켜서 뒷박 아래에 두지 않고 촛대 위에 두며; 그리고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취게 한다.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밝게 비쳐서 저희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인도해라.

140:3.14 (1571.1)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나를 대신하게 하고 내 아버지의 대사로 일하게 하려는 것이며, 너희가

나가서 기쁜 소식을 선포할 때, 너희를 메신저로 보내신 아버지를 신뢰하라. 불공정에 대하여는 힘으로 저항하지 말고; 너희 자신의 육신적인 힘에 의존하지 마라. 만일 너희 이웃이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그에게 돌려대라. 너희들 사이에 있는 법에 호소하기보다는 불공정으로 인한 고통을 기꺼이 받아라. 고통과 빈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자비와 친절함으로 보살펴 주어라.

140:3.15 (1571.2)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이라고 너희가 믿는 그대로, 너희 또한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라.

140:3.16 (1571.3)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에게 고루 비취도록 해를 만드셨으며; 마찬가지로 온당한 자들과 부당한 자들 모두에게 비를 내리신다. 너희는 하느님의 아들들이다; 더욱이, 너희는 내 아버지 왕국의 대사(大使)들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한 것같이

너희도 자비를 베풀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과 같이 왕국의 영원한 미래 속에서 너희도 완전해지라.

140:3.17 (1571.4) “너희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임명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임명되었다. 이 세상에서의 너희 일생이 끝날 때에는, 너희 모두는 자비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필사자 생애 동안 육신을 가진 너희의 모든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요구한다. 너희 눈 속에는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 하나를 뽑고자 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라.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버려야, 눈이 밝아져서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게 된다.

140:3.18 (1571.5) “진리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두려움 없이 정의로운 일생을 살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나의 사도가 될 것이 내 아버지의 대사가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말을 들어왔을 것이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모두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왕국으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너희 자신이 살아있는 진리의 빛 속에서 걸어가야만 한다. 하늘의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가 공정한 판단과 명철한 지혜를 보이기를

간곡히 권한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너희 보물들을 발로 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140:3,19 (1571.6) “거짓 선지자들을 배척하라고 경고하겠는데,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지만 속에는 탐욕스러운 이리들이 들어 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더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선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마침내 모두 썩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얻는 데 있어서, 그 평가에 포함되는 것은 그 동기이다. 내 아버지는 사람의 가슴을 들여다보시고, 그들의 내면적인 갈망과 진실된 목적을 심판한다.

140:3,20 (1571.7) “왕국 심판이 벌어지는 중대한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였고,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불가사의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저희들에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겠으니; 가짜 선생들인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명령을 듣고, 내가 아버지를 너희에게 나타내듯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나타내라는 임무를 진정으로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봉사 안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왕국 안으로 들어오는, 풍부한 입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140:3.21 (1571.8) 사도들은 예수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때에는 예수가 그들에게 최극의 권능을 가진 자로서 말씀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해가 질 무렵에 산에서 내려왔지만, 예수께 질문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제 4 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0:4.1 (1572.1) 소위 "산상수훈(山上垂訓)"이라고 불리는 것은 예수의 복음이 아니다. 많은 도움이 될 가르침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예수가 열 두 사도들에게 주신 임명식 훈시였다. 그것은 주(主)께서 감동적이고도

완전하게 자기 아버지를 나타내셨던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일러준 그의 개인적 명령이었다.

140:4.2 (1572.2) “너희는 세상의 소금,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만들겠느냐? 그렇게 된 후로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140:4.3 (1572.3) 예수의 시절에는 소금이 귀중하였다. 심지어 돈으로도 사용되었다. 현대 용어의 ‘급여’(Salary)란 말도 소금(salt)에서 유래되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음식의 보존재 이다. 그것은 다른 것들을 더욱 맛있게 만들며, 그리고 이처럼 그것은 소모되어지면서 봉사한다.

140:4.4 (1572.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감추어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촛불을 켜서 뒷박 아래에 두지 않고 촛대 위에 두며; 그리고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취게 한다.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밝게 비쳐서 저희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들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인도해라.”

140:4.5 (1572.5) 빛은 어둠을 몰아내지만 한편, 빛은 또한 그렇게 "눈을 멀게"하여 혼란시키고 좌절시킬 수 있다. 우리는 우리 동료들로 하여금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새롭고도 경건한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빛을 그렇게 빛내라고 훈계를 받았다. 우리는 빛을 밝게 비치되, 자아에 대한 관심에 빠지도록 그렇게 빛을 밝히면 안된다. 각자의 어떠한 직업 조차도 이 생명의 빛을 전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반영체"로 활용될 수 있다.

140:4.6 (1572.6) 강한 성격은 그릇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에서 유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재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에서 유래된다. 사심없다는 것은 인간적 위대함의 표식이다. 자아-실현의 최고 차원은 경배와 봉사로서 달성된다. 행복하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그릇된 행위에 대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옳은 행위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다.

140:4.7 (1572.7) "너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개인성은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 변화하는—성장하는—것은 도덕적 성격이다. 현대 종교들이 범하는 주된 실수는 소극주의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베어져서 불 속에 던져진다.” 도덕적 가치는 단순한 억압으로—하지 말라”는 금지령에 복종하여—얻을 수 없다. 종교적 생활에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가치 없는 동기이다. 종교는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을 계시하고 사람의 형제신분을 향상시켜 나아갈 때에만 타당할 뿐이다.

140:4.8 (1572.8) 성공적인 삶의 철학은, 조화우주 통찰력과,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환경에 대한 각자의 감정반응의 합계가 병합되어 형성된다. 이것을 기억하라: 선천적인 충동욕구는 근본적으로 수정될 수 없는 반면, 그러한 충동욕구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변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본성은 수정될 수 있고 성격은 향상될 수 있다. 튼튼한 성격 안에서 감정적 반응들이 집대성되고 조화-협동되고, 그렇게 해서 통일된 개인성이 나오게 된다. 부족한 통일이 도덕적 본성을 약화시키고 불행을 야기한다.

140:4.9 (1572.9) 가치 있는 목표가 없다면, 인생은 이렇다 할 주견이 없게 되고 무익하게 되며 더욱 불행하게 된다. 열두 사도 성직 임명식에서 행한 예수의 강연은 인생에

대하여 주(主)가 되는 철학을 이루고 있다. 예수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체험적 신앙을 행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는 단순한 지적 동의, 쉽게 믿는 것, 그리고 확립된 권한에 의존하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훈계하였다.

140:4.10 (1573.1) 교육은 우리의 본성적이고 선천적인 충동욕구를 보다 나은 방법으로 충족시키는 기법을 배우는(발견하는) 것이어야 하며, 행복은 정서적 만족에 대한 이들 강화된 기법에서의 결과가 만드는 총합이다. 행복은 환경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쾌적한 주변들은 행복에 크게 이바지할 수도 있다.

140:4.11 (1573.2) 모든 필사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되는, 완성된 사람이기를 실제로 열망하고 있으며, 그러한 달성은,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우주는 참으로 아버지다운"것 이기에 가능하다.

제 5 장. 아버지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

140:5.1 (1573.3) 산상수훈에서부터 최후의 만찬에서의 강연에 이르기까지, 예수는 따르는 무리들에게 형제의 사랑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현시하도록 가르치셨다. 형제로서의 사랑은,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황금률”을 충분히 이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너희 동료 필사자들을 그렇게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

140:5.2 (1573.4) 예수는 인류를 이중적인 애정으로 사랑한다. 그는 땅에서 하나의 두 겹으로 중첩된 개인성—인간적인 개인성과 신성한 개인성—으로 사셨다. 하느님의 아들이로서의 그는,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한다—그는 사람의 창조자이시며 그의 우주 아버지시다. 또한 사람의 아들이로서의 예수는, 하나의 형제로 필사자들을 사랑한다—그는 참으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140:5.3 (1573.5) 예수는 자기 추종자들이 형제로서의 사랑에서 어떤 불가능한 현시활동을 성취하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느님과 같이 되도록—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게 되도록—그들이 심히 분투함으로써, 하느님이 당신의 창조체들을 대하듯이 그들도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사람들을

그렇게—아버지다운 애정을 보여 주기 시작하는—사랑하기 시작하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예수는 열 두 사도들을 향한 이러한 권고의 말들 가운데서 아버지다운 사랑이라는 이 새로운 개념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였는데, 그러한 개념이 수많은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정된 감정적 태도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140:5.4 (1573.6) 주(主)는 이렇게 중대한 강연을 시작하면서, 단순한 형제의 사랑의 한계에 대비하여,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자신의 네 가지의 초월적이고도 최극의 반응들로 이루어진 후반부의 묘사에 대한 전주곡으로, 신앙의 네 가지 태도들에 대해 주의를 집중시켰다.

140:5.5 (1573.7) 그는 먼저 영이 가난한 자들, 정의에 굶주린 자들, 온유한 자들, 가슴이 청결한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였다. 영을 인식하는 그러한 필사자들에게는 아버지다운 애정을 놀랍게 실행하는 시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성한 자아없음의 그러한 차원을 달성하는 것이 기대될 수 있다; 애통하는 사람들로서도 그들은 자비를 베풀고, 평화를 증진시키고, 박해를 견디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 가지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힘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애정은, 형제의 애정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초월하는 헌신의 차원들을 달성할 수 있다.

140:5.6 (1573.8) 이들 지극한 축복의 신앙과 사랑은 도덕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행복을 창조한다. 공포와 분노는 성격을 약화시키고 행복을 파괴한다. 이 중차대한 설교는 행복의 음률에서 시작되며 나왔다.

140:5.7 (1573.9) 1. “영에서 가난한 자들—겸손한 자들—은 행복하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당장의 즐거움을 누리려는 갈망이 충족되는 것이다. 어른들은 행복의 증강이라는 수확을 나중에 거두기 위해 자아-부정이라는 씨를 기꺼이 뿌린다. 예수 당시와 그 이후로, 행복은 재산의 소유라는 관념과 너무 흔히 연관되어 왔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일화에서, 바리새인은 영적 풍요—자기중심적—를 느꼈고, 세리는 “영적으로 가난함”—겸손—을 느꼈다. 한 사람은 자아-풍족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진리를 추구하였다. 영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 풍요에 대한 갈망—하느님에

대한—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 탐구자들은 먼 미래의 보상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지금 보상을 받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슴속에서 하늘의 왕국을 발견하며, 그러한 행복을 지금 체험한다.

140:5.8 (1574.1) 2.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풍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영에서 가난함을 느끼는 자들만이 언제나 정의에 굶주릴 것이다. 오직 겸손한 자들만이 신성한 권능과 영적 힘을 추구한다. 그러나 영적 자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일부러 영적 금식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육체적 금식은 4, 5일이 지나면 위험해지고, 그 사람은 음식에 대한 모든 욕구를 잃기 쉽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장기간의 금식은 배고픔 자체를 없애는 경향이 있다.

140:5.9 (1574.2) 체험으로 얻는 의는 기쁨이지, 의무가 아니다. 예수의 정의로움은 역동적인 사랑—아버지의 애정과 형제의 애정—이다. 그것은 부정적이거나 하지 말라는 식의 정의로움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정적인 것—“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계속 바랄 수 있겠는가?

140:5.10 (1574.3)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게 이들 무상의 행복에 관한 처음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성숙한 마음은 그 의의(意義)들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140:5.11 (1574.4) 3. "온유한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온유함은 두려움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하느님께 협조하려는 사람의 태도—"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이다. 그것은 인내와 참음을 포용하며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우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된다. 그것은 신성한 인도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려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친다. 예수는 유란시아에서 가장 이상적인 온유한 사람이었으며 광대한 하나의 우주를 상속받았다.

140:5.12 (1574.5) 4. "가슴이 청결한 자는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하느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영적 순결은, 의심과 복수심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부정적인 본질특성의 것이 아니다. 순결을 논함에 있어서, 예수는 인간의 성(性)에 대한 태도를 전적으로 다루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는 사람이 자기의 동료 사람에게 가져야 할 신앙; 아버지가 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앙, 그리고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같이 그들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는 신앙을 더 많이 고려하였다. 아버지의 사랑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며 악을 묵과하지 않지만, 경멸과는 항상 거리가 멀다. 아버지의 사랑은 한 가지 목적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찾는데;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자세이다.

140:5.13 (1574.6) 하느님을 보는 것—신앙을 통해서—은 참된 영적 통찰력을 얻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영적 통찰력은 조절자의 안내를 강화시키며, 그리하여 마침내는 하느님을-의식하는 것을 증강시킨다.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를 알게 될 때, 너희 자신들이 신성한 아들관계임을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육신의 형제들을 형제로서—형제의 사랑으로—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로서—아버지의 애정—그들을 점점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

140:5.14 (1574.7) 이러한 교훈은 어린아이에게도 가르치기 쉽다. 아이들은 본성적으로 쉽게 믿으며, 부모들은 이들의

단순한 신앙을 잃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아이들을 대할 때에는, 모든 속임수를 피하고 의심을 일으키도록 넌지시 비추는 것을 삼가라. 그들이 자신들의 영웅들을 고르고 자신들의 일생의 과업을 선택하도록 현명하게 도움을 주어라.

140:5.15 (1574.8) 그리고 나서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인간의 모든 투쟁들의 주된 목적—완전함—신성한 달성까지도—의 실현에 대하여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그는 항상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는 12사도들에게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권고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가치 있는 성취로 이루어졌어야 했으며; 형제의 사랑의 성취를 나타냈어야 했다. 그는 오히려 사도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사랑하였던 것처럼—형제의 사랑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셨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의 네 가지 최극의 반응들을 지적함으로써 이것을 설명하였다:

1. “애통하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상식이나 최선의 논리에서는, 행복이 애통함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는 절대로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외적이거나 혹은 허식적인 애통함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정이 많은 감정적 태도를 암시하였다. 소년이나 젊은이들에게, 부드러움이나 다른 감정적 느낌이나 육체적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남자답지 못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가장 큰 실수다. 연민의 정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가치 있는 속성이 된다. 남자다워지기 위해서 무정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용감한 남자를 창조하는 그릇된 방법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애통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애통하는 자였던 모세는 삼손과 골리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었다. 모세는 최고의 영도자였지만 그는 또한 온유한 사람이기도 하였다. 인간 욕구에 민감하고 이에 반응하는 것은, 진정하고 영구한 행복을 창조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온화한 태도는 분노와 증오 그리고 의심의 악영향으로부터 혼을 보호해준다.

140:5.17 (1575.2)

2. “**금홀히** 여기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금홀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자비는, 가장 높고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진실한 **우정—자애로움—**을 의미한다. 때로는 자비가 수동적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자비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최극의 아버지다운 것—**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아무리 여러 번 용서하여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흠이 없는 자녀를 고통으로부터 풀어주고자 하는 충동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이들이 실재적 상태를 감사하며 인정할 만큼 충분한 나이가 되면, 정상적으로 친절하고 동정적이 된다.

140:5.18 (1575.3)

3. “**평화를-만드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군사적 해방을 소망하고 있었지 **평화를-만드는** 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가 말씀하는 평화는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재판과 박해에 직면하였을 때 예수는,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가슴에 **파란이** 일게 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라.”라고 말씀하였다. 이것은 파괴적인 갈등을 미리 방지하는 평화이다. 개인적 평화는 개인성을

집대성한다. 사회적 평화는 두려움과 탐욕과 분노를 막는다. 정치적 평화는 인종적 반목과 민족적 의심 그리고 전쟁을 막는다. 평화를-만드는 일이 불신과 의심에 대한 치료이다.

140:5.19 (1575.4) 아이들은 평화를-만드는 자로 기능하도록 쉽게 가르칠 수 있다. 그들은 단체 활동들을 즐거워한다; 그들은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한다. 예수가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려고 하는 자는 생명을 찾게 될 것이다."

140:5.20 (1575.5) 4.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하늘의 왕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쁨으로 향유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140:5.21 (1575.6) 평화 뒤에는 박해가 종종 따라온다. 그러나 젊은이들과 용감한 어른들은 어려움과 위험을 결코 피해가지 않는다.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은 이러한 모든 일들—형제의 사랑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박해의 최종적 수확물은 언제나 진보였다.

140:5.22 (1575.7) 아이들은 항상 용기 있는 도전에 반응한다. 젊은이는 언제나 기꺼이 “위험을 무릅쓴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일찍부터 희생마음을 배워야만 할 것이다.

140:5.23 (1575.8) 그러므로 산상수훈에서의 지복(至福)의 말씀은 법—윤리나 의무—에 기반을 두지 아니하고 신앙과 사랑에 그 기반을 두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140:5.24 (1575.9) 아버지의 사랑은 악에 대하여 선으로 보답하는—불공정에 대하여 선으로 갚아주는— 일을 기뻐한다.

제 6 장. 성직 임명이 있던 날 저녁

140:6.1 (1576.1) 일요일 저녁, 가버나움 북쪽의 산지로부터 세베대의 집에 도착한 예수와 12사도들은 간단한 식사를 하였다. 그 후에 예수가 해변을 따라 산책하는 동안, 사도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었다. 간단한 회의를

마침 후에 쌍둥이 형제가 작은 모닥불을 피우는 동안 안드레는 예수를 찾아 나섰으며, 예수를 만나게 되자 그가 이렇게 말했다: “주(主)여, 내 형제들이 왕국에 대한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가르침을 주실 때까지는 이 임무를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원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당신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더 납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청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안드레와 함께 나머지 사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셨다.

140:6.2 (1576.2) 정원으로 들어가신 후에 그는 사도들을 주위에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옛날 방식으로 새로운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하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나의 가르침을 믿고 또한 하느님을 믿어야만 한다. 왕국의 새 복음은 현재 있는 것에 맞도록 만들어질 수 없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과 이 세상에서의 그의 사명에 대해 그릇된 관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갈라놓으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취시키려고, 발전시키고 명백하게 밝히려고 왔다. 나는 율법을 어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 가슴의 돌판 위에 새 계명을 새겨 주려고 왔다.

140:6.3 (1576.3) “나는 너희에게 구제(救濟)와 기도와 금식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이들의 정의로움을 앞지를 수 있는 어떤 정의로움을 요구한다. 만일 너희가 왕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사랑과 자비와 진리로 이루어진 정의로움—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르려는 신실한 갈망—을 가져야만 한다.”

140:6.4 (1576.4)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주(主)여, 새 계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 새 길을 보여 주십시오.” 예수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너희는 이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왔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나 나는 행위의 뒤에 감추어진 동기를 본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겠는데,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누구든지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자기 마음에 증오를 품고 복수를 계획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너희는 동료들을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 의도에 의해서 심판한다.

140:6.5 (1576.5)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학자들의 말을 이미 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누구든지 이미 자기 가슴속에서 그녀를 간음하였다. 너희는 사람을 오직 그 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아버지는 자기 자녀의 가슴을 살펴보고 그리고 자비 안에서 그들의 의도와 실제 갈망에 따라 그들을 판결한다.”

140:6.6 (1576.6) 예수가 다른 계명에 대해 계속 논의할 마음을 가졌지만, 야고보 세베대가 중간에 끼어들어 물었다: “주(主)여, 저희는 사람들에게 이혼(離婚)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모세가 가르친 대로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해도 좋다고 허락해야 합니까?” 예수가 이 물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는 법(法)을 제정하러 온 것이 아니라 깨우치러 왔다. 나는 이 세상왕국을 개혁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을 설립하러 왔다.

오늘날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다른 세대에는 맞지 않을 정부의 규율이나 무역 또는 사회적 태도를 가르치려는 유혹에 응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나는 단지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영을 해방시키며 혼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이혼의 문제에 관한 이 질문에 대답한다면, 모세는 이러한 일을 허락했으나 아담의 시대에 그 동산에서는 허락되지 않았다.”

140:6.7 (1577.1) 잠깐 동안 사도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게 한 후, 예수는 말을 계속하였다: “너희는 모든 필사자의 행위에는 두 가지 관점들—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 육신적인 방법과 영적인 방법; 시간적인 평가와 영원에서의 관점—이 있음을 항상 인식해야만 한다.” 사도들이 비록 예수가 가르친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 가르침을 통해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140:6.8 (1577.2) 그리고 나서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항상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가르침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려고 한다; 내 가르침의 영을 빨리 식별하지 못한다. 다시 상기시키는데 너희는 나의 메신저들임을 명심하고; 내가 영적으로 나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의 삶도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입었다. 너희는 나의 개인적 대표자들이지만; 모든 이들이 모든 면에서 너희가 행하는 것처럼 살리라고 기대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 외에도 다른 무리의 양떼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또한 그들에게 내가 매인바 되어 끝까지 필사자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나는 그들에게도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모범을 보여야 함을 기억해야만 한다.”

140:6.9 (1577.3) 그러자 나다니엘이 물었다: “주(主)여, 우리가 공의를 위해 양보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모세의 율법은 말하기를,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예수가 대답했다; “너희는 악을 선으로 갚아라. 나의 메신저들은 사람들과 분투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이에게 온유하게 대해라. 당한 것을 그대로 갚는 것은 너희의 법칙이 아니다. 사람의 규율에는 그러한 법이 있지만, 왕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항상 자비가 너희의 심판을 결정해야 하며 사랑이 너희의 행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 말이 너희에게 벅차다면, 지금이라도 되돌아 갈 수 있다. 만약 사도가 되기

위한 요구사항이 너희에게 너무 벅차다면, 너희는 덜 엄격한 제자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140:6.10 (1577.4) 이러한 충격적인 말씀들을 듣고 사도들은 잠시 동안 자기들끼리 따로 모임을 가졌으나, 그들은 곧 다시 돌아왔으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 “주(主)여, 우리는 당신과 함께 가겠으며; 우리 중 어느 하나도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별도의 대가(代價)를 치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우리는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제자가 아닌 사도가 되겠습니다.”

140:6.11 (1577.5) 예수가 이 말을 듣고 말씀하였다: “그러면 너희는 기꺼이 책임감을 갖고 나를 따라라. 너희의 선행을 은밀히 행하되; 너희가 선행을 할 때에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 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에 홀로 따로 가서 하며, 헛된 반복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그리고 금식할 때에 다른 이에게 보이도록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나의 선택된 사도로서 이제 왕국의 봉사를 하러 따로 나갈 때에 너희를 위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사심-없는 봉사를 통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왜냐하면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가슴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40:6.12 (1577.6) “눈은 몸의 등불이다; 따라서 만약 네 눈이
관대하면 너의 온 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만약
눈이 이기적이면 온 몸이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다. 만일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둠으로 변한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140:6.13 (1577.7) 그러자 도마가 예수께 자기들이 “계속하여 모든
것을 나누어가져야 하는지”를 물었다. 예수가 대답하였다:
“그렇다,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의 납득하는 가족으로
살게 되기를 나는 바란다. 너희는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으니, 나는 너희가 전심을 다 바쳐 봉사하기
바란다. 너희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을 알고 있다. 너희는 하느님께 진지하게 경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재물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한다. 왕국의
일에 기탄없는 협력을 하려고 애쓴다면, 너희 자신의 삶을
걱정하지 말며;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자진해서 일하는 손과 진실한 가슴은 굶주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너희의 모든 힘을 왕국의 일에 헌신하고자 준비했으므로, 아버지는 너희의 필요함을 못본체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하라. 먼저 하느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한 날의 수고는 그 날로 족하다.”

140:6.14 (1578.1) 예수는 그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밤을 지새우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니; 내일의 일을 위해 숙소로 가서 쉬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눈에서는 잠이 떠났다.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주(主)께 간청하였다: “저는 잠깐 사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안한 영 때문이며, 어쩌면 주(主)로부터 꾸짖음을 당할 지도 모르지만, 주(主)와 단 둘이서 라면 달갑게 받겠습니다.” 예수는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라고 말씀하며 집안으로 그를 데리고 가셨다. 그의 주(主)의 현존으로부터 돌아온 베드로가 기분이 한결 고조된 것에 힘을 얻어 야고보도 예수와 말씀을 나누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이른 아침시간까지 다른 사도들도 계속해서 주(主)와 개인적 면담을 가졌다. 잠을 자고 있던 쌍둥이 형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의 면담을 끝내자, 안드레가 예수께 가서 물었다: "주(主)여, 쌍둥이 형제는 뜰에 있는 불 옆에서 자고 있는데 저들도 선생님과 면담을 하겠는지 물어보려 깨울까요?" 그러자 예수는 미소를 지으며 안드레에게 말씀하였다: "그들은 잘하고 있으니—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이제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제 7 장. 성직 임명 다음 주간

^{140:7.1 (1578.2)} 몇 시간 눈을 붙인 뒤, 사도들이 예수와 함께 늦은 아침 식사를 들기 위해 모였을 때, 예수가 말씀하였다: "너희는 이제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을 가르칠 너희의 임무를 시작해야 한다.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해라." 예수가 이렇게 말하자 도마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주(主)여, 지금쯤은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이 위대한 사업을 성취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우리가 왕국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며칠만 더 여기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는 다른 사도들 모두도

도마와 같은 생각인 것을 보시고 말씀하였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자; 우리는 안식일까지 여기 머물기로 하겠다.”

140:7.2 (1578.3) 여러 주간들 동안 호기심 있는 구경꾼들을 포함하여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의 작은 집단들이 예수를 만나러 벳세다로 왔다. 이미 예수에 관한 소식은 널리 지방에까지 퍼졌으며; 호기심에 찬 집단들이 티레, 시돈, 다마스쿠스, 케자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같은 먼 곳의 도시로부터 왔다. 그 때까지는 예수가 그들을 맞아들여 왕국에 대해 직접 가르치셨으나, 이제는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맡겼다. 안드레는 사도들 중에서 한 명씩을 택하여 방문자들을 말아보게 했으며 가끔은 사도들 모두가 함께 이 일을 말아보았다.

140:7.3 (1578.4) 그들은 이틀 동안 일을 했는데, 낮에는 가르치고 밤에는 늦게까지 사적 모임을 가졌다. 삼 일째 되는 날, 예수는 사도들에게 “고기를 잡거나 기분전환을 하거나 혹은 가족을 방문하고 오라”고 말씀하며 그들을 보내시고, 자신은 세베대와 살로메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나머지 3일 동안의 가르침을 위해 목요일에 돌아왔다.

140:7.4 (1578.5) 이 연습기간 동안, 예수는 세례이후의 자신의 지상 사명의 두 가지 큰 동기들에 대해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였다:

140:7.5 (1578.6) 1.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현시하는 일.

140:7.6 (1578.7) 2.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이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그들이 지고자의 자녀됨을 신앙으로 깨닫는 일.

140:7.7 (1579.1) 이러한 한 주간 동안의 여러 가지 체험이 사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몇몇 사도들은 지나친 자아-확신이 되어 있었다. 안식일이 지난 날 밤인 마지막 저녁 모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께 나아와 말했다: “우리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왕국을 취하러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말에 예수가 대답하기를, “너희 지혜가 너희의 열정에 필적하고, 너희 용기가 너희 무지를 대신해 주기를 바란다.”

140:7.8 (1579.2) 사도들은 예수의 가르침의 많은 부분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예수가 그들과 함께 지냈던 즐겁고 아름다운 일생의 의의(意義)는 이해하였다.

제 8 장. 목요일 오후 호수에서

140:8.1 (1579.3)

예수는 사도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아셨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른 연관-동료들에게 자신의 관념들을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그들에게 얼마간의 특별한 가르침을 더 주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사도들이 영적 왕국의 관념을 다소 이해하면서도, 새로운 영적 가르침을 땅에서의 일시적 힘으로서의 다윗의 권좌를 되찾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으로 하늘의 왕국의 이전의 개념에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확고하게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따라서 예수는 목요일 오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호수에 나가 왕국의 관련사들에 대해 좀 더 설명하였다. 그것은 수많은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 장장 네 시간에 걸친 수업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은, 시몬 베드로가 그 날 오후에 배웠던 것에 대해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형 안드레에게 전했던 내용을 가장 유익하게 재구성하여 요약한 것이다:

140:8.2 (1579.4)

1.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예수는 하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믿으라고 가르쳤는데, 이는 맹목적이고 수동적인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날 오후에 오래된 히브리 속담에 동의하면서 인용하였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그는 자신의 가르침들에 대해 충분한 해석이 되도록 자신의 체험담을 들려주었다. 아버지를 신뢰함에 대한 그의 교훈들은 현대나 또는 어떤 다른 시대에 있어서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상황에 의해 판단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의 가르침은 모든 시대와 모든 세상에 있어서 하느님과 가깝게 사는 삶이라는 이상적인 원리를 포용하고 있다.

140:8.3 (1579.5) 예수는 그 세 사람들에게 사도의 신분과 일반 제자의 신분으로부터 요구되는 점들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밝혀 주었다. 그리고 나서도 예수는 12사도들이 신중함과 예전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가 금한 것은 앞선-생각이 아니라 걱정함과 근심함이었다. 그는 하느님의 뜻에 능동적이고 민첩하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셨다. 검약과 검소에 관한 그들의 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는 다만 목수로서, 배-만드는 자로서, 어부였던 자신의 일생에 대하여, 그리고 12사도들로 이루어진 자신의 조심스런 조직에 대하여 주목하라고 하셨다. 그는 세상은 그들의 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일생의 환경은 하느님의 자녀들과 나란히

일하면서 신성한 섭리시대를 구성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만들려고 애썼다.

140:8.4 (1579.6) 예수는 사도들에게 무저항이라는 자신의 개인적 실천관행을 납득시키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방어를 절대적으로 거부하였으며, 사도들도 그렇게 행해 준다면 그가 기뻐하실 것임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졌다. 그들에게 악에 저항하거나 불공정이나 혹은 부상에 대항해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셨지만, 그릇된 일에 수동적으로 참으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그날 오후에, 악을 행하는 자와 범죄자들의 사회적 처벌을 인정하며 정부가 때때로는 사회질서 유지와 공의의 실행을 위해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140:8.5 (1579.7) 그는 사도들에게 보복이라는 악의 실천을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고하였다; 보복, 원수를 갚겠다는 관념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유감을 품는 것도 개탄하였다. 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관념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사적이나 개인적 복수의 모든 개념에 찬성하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한편으로는

정부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판단 아래에 맡겼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이 개별존재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정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그 세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히셨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그 때까지의 자신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40:8.6 (1580.1)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인간이 형제신분이라는 도덕적 주장들을 기억하라.

140:8.7 (1580.2) 악은 무익하다: 잘못은 보복으로 올바르게 되지 않는다. 악 자체의 무기로 악과 싸우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140:8.8 (1580.3) 신앙을 가져라—신성한 공의와 영원한 선행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140:8.9 (1580.4) 2. 정치적 태도. 예수는 사도들에게 그 당시 로마정부와 유대민족 사이에 존재하던 긴장된 관계에 대해 말할 때, 신중해 지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들이 이들 어려움들에 어떤 식으로든지 말려드는 것을 것을 금하였다. 그는 언제나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내어 놓으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적들이 처놓은 정치적 함정에 항상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자신의

관심이 구원의 새로운 길을 확립하는 자신의 사명으로부터 옆길로 전환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이 그 어떤 다른 것에 관여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자신의 개인적 일생에서, 항상 모든 시민법과 규정을 준수했다; 모든 대중적 가르침에서 시민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은 무시하였다. 그는 자신이 오직, 사람의 내적세계 그리고 개인적 영적 일생의 원칙들에만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세 사도들에게 말씀하였다.

140:8.10 (1580.5) 그러므로 예수는 정치적 개혁가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재조직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다; 만약 그가 그랬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시대와 그 세대에만 적용된 것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삶의 최선의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 어떤 세대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문제에, 예수의 일생을 최상으로 적응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수고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을 그 어떤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론이나 사회 또는 산업 체제와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오류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

3. 사회적 태도. 유대의 랍비들은 오랫동안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해 논쟁해 왔다. 예수는 와서,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우리나는 친절 관념을 제시하였다. 이웃을 너무도 진실하게 사랑함으로써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도록 이웃을 확대시키고, 그렇게 하여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만드는 사랑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예수는 군중이 아니라 오직 개별존재에게 관심을 주었다. 예수는 사회학자는 아니었지만 모든 형태의 이기적 고립을 없애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순수한 동정심, 연민을 가르치셨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자비에-사로잡힌 아들이었으며; 연민은 바로 그의 본성이었다.

주(主)는 사람들이 친구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것을 절대로 금한 적이 없었지만, 자신의 추종자들에게는 가난하고 불행한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어야한다고 말씀하였다. 예수는 공의에 대한 확고한 감각을 갖고 계셨지만 그것은 항상 자비로 조절되어 있었다. 그는 사도들에게 사회의 식객(食客)들이나 전문적으로 구제를-찾아다니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사회에 대한 의견 발표라고 하기에 가장 가까웠던 말씨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140:8.13 (1580.8) 그는 무분별한 친절이 많은 사회적 악에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하였다. 다음날 예수는 사도들의 재산은 예수 자신의 요구나 두 사도의 공동 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제금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유다에게 확고하게 지시하였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예수는 항상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실천 관행이었다. 모든 사회적 상황 속에서 절제와 인내와 용서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인 듯이 보였다.

140:8.14 (1581.1) 예수의 생활철학—여기서뿐만 아니라 나중에도—에서 영구적인 최고의 중심은 가족이었다. 그는 가족을 기반으로 하여 하느님에 대해 가르치셨으며, 한편으로는 조상들을 과잉 숭배하는 유대인의 전통을 고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가정생활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의무라고 하였지만, 가족 관계가 신앙적 의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또한 분명하게 밝히셨다. 그는 가족이 현세적인 제도이고, 죽음 이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셨다. 예수는 자신의 가족이 아버지의 뜻과 충돌이 되었을 때, 자신의 가족을 포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새롭고도 폭넓은 형제신분—하느님의 아들들—을 가르치셨다. 예수 시대의 팔레스타인과 로마제국 전역에서는 이혼 실천 관행이 성행하고 있었다. 예수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법을 규정하기를 거듭 거부하였지만, 예수의 초기 추종자들은 대부분 이혼에 관한 뚜렷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예수의 가르침으로 돌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요한 마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신약 성서의 저자들이 이혼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진보된 이들 관념들을 고수하였다.

140:8.15 (1581.2) 4. 경제적 태도. 예수는 세상에서 배운 대로 일하였고 사셨으며 거래하였다. 비록 그가 부(富)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해 자주 주의를 기울이긴 하였지만, 경제 제도의 개혁가는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는 이러한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어떤 개선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 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들로서는 재산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단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분배에 대해 말씀했을 뿐, 부와 재산에 반대하는 설교를

하지는 않았다. 그는 사회 공의와 산업적 공평성의 필요를 인식하였지만, 그것의 달성을 위한 아무런 규율도 제시하지 않았다.

140:8.16 (1581.3) 그는 열 두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한 번도 세상의 재물을 버리라고 가르치시지 않았다. 의사였던 누가는, 사회적 평등에 강한 신념을 가진 자였으며, 예수의 많은 가르침들을 자신의 개인적 믿음과 일치시켜 해석하였다. 예수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공동생활 방식을 따르라고 개인적으로 지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한 문제에 관한 어떤 종류의 말도 하지 않았다.

140:8.17 (1581.4) 예수는 사람들에게 탐욕에 대해 자주 경고하면서, "사람의 행복은 그의 물질적 소유의 풍족에 있지 않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라고 거듭 말씀하였다. 그는 재산의 소유에 대해 정면 공격을 하지 않았지만, 영적 가치가 선행된다는 영원한 기본 원칙을 강조하였다. 그는 자신의 후반기 가르침에서 대중에게 설교할 때에 수많은 비유를 통하여 실수를 일으키는

유란시아의 일생의 관점의 많은 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셨다. 예수는 절대로 경제이론을 정립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각각의 시대가 자신들의 당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그리고 만일 예수가 육신으로 지금-현재 이 땅에 살고 계시더라도, 그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분쟁 속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으실 것이므로 대부분의 선남선녀들이 실망할 것이다. 그는 너희들로 하여금 순수하게 인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너희의 내적인 영적 생활을 완전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면서 홀로 따로 송고하게 남아 계실 것이다.

140:8.18 (1581.5) 예수는 모든 이들을 하느님과-같음으로 만들고 이 하느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동정심으로 바라보며 기다리실 것이다. 그가 비난한 것은 부가 아니라 그 부가 그것을 신봉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었다. 이 목요일 오후에 예수는 처음으로 사도들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였다.

140:8.19 (1581.6)

5. 개인적 종교. 그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의 일생을 통해 그의 가르침을 더 잘 납득해야만 한다. 그는 유란시아에서 완전한 일생을 사셨고, 그의 고유한 가르침들은 그 일생이 직접적인 체험으로 가시화될 때에만 납득될 수 있다. 아버지의 신성한 특성과 사랑 넘치는 개인성을 드러내는 데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예수의 사도들에 대한 가르침과 군중에게 한 설교가 아니라, 그의 일생이다.

140:8.20 (1582.1)

예수는 히브리의 선지자들이나 그리스의 도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공격하지 않았다. 주(主)는 이들 위대한 선생들의 많은 좋은 말들을 인정하였지만, 그는 추가적인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 대한 사람 의지의 자발적인 일치”를 가르치는 일이었다. 예수는 단지 종교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고 오직 영적 자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하나의 종교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너희가 한 번만이라도 그를 바라 볼 수 있었다면, 예수는 이 세상일들에 위대한 체험을 한 실제로 하나의 사람이었음을 단번에 알아 차렸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예수의 가르침들은 그리스도교 시대의 여러

세기들을 거치면서 비뚤어지고 잘못 전해져 왔다; 너희들도 역시 주(主)의 온유함과 겸손함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가 자신의 일생 속에서 목표했던 것은 장엄한 자아-존중을 갖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오직 사람들이 스스로 낮아져야만 진정으로 높임을 받는다고 충고하였다; 그가 실제로 목표한 것은 하느님께 대한 진정한 겸손이었다. 그는 성실함—순수한 진심—에 가장 큰 가치를 두었다. 성실성은 그가 성품을 평가하는 기본 덕목이었으며, 반면에 용기는 그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다. “두려워 말라”는 말은 그의 표어였고, 인내는 그의 이상적인 성품의 힘을 지탱해 주는 것이었다. 예수의 가르침은 종교적 용기, 담력, 영웅적 행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가 자신의 개인적 대표로서 어째서 소박하고 씩씩하며 대부분 어부 출신인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였는지 하는 이유이다.

140:8.21 (1582.2) 예수는 당시의 사회적 병폐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도덕적 비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진정한 덕을 갖춘 적극적인 선생이었다. 그는 가르치실 때에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였다; 악을 선전(宣傳)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는 도덕의 개혁가도

아니셨다. 그는 인간의 감각적 충동이 종교적 비난이나 법적 제재에 의해서 억제되지 않음을 잘 아셨으며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다. 그의 몇 가지 경고는 주로 자부심, 잔인함, 억압, 위선에 관한 것이었다.

140:8.22 (1582.3) 예수는 요한처럼 격렬하게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정직한 가슴을 소유하고 있음을 아셨으며; 그들이 종교적 전통에 얽매어 있음을 납득하였다. 예수는 "먼저 좋은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 많이 강조하였다. 그는 그 세 사도들에게, 자신은 몇 가지의 특정한 선행들에게 가치를 두지 않고 전체의 일생에 가치를 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40:8.23 (1582.4) 그 날의 가르침에서 요한이 터득한 한 가지는, 예수의 종교 핵심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르려는 데서 동기를 가진 개인성과 더불어, 연민이 가득한 성격을 습득하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

140:8.24 (1582.5) 베드로는 자신들이 선포할 복음이 실제로 전체 인간 종족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관념을 파악했다. 그는 이 생각을 나중에 바울에게 전했는데, 바울은

그것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칭하는 그리스도교 교리를 형성하였다.

140:8.25 (1582.6) 야고보는 예수가 그의 지상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이미 완성된 하늘왕국의 시민들이 된 것처럼 살게 되기를 원한다는 감격적인 진리를 깨달았다.

140:8.26 (1582.7) 예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셨고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다. 그는 사도들에게 제자들과 신도들을 일정한 틀에 짜 맞추지 말라고 끊임없이 훈계하였다. 그는 하느님 앞에서 완전하고 분리된 한 개별존재로서 각각의 혼이 각자 자신의 길을 헤쳐 나가는 것이 허용되기를 원하였다. 베드로의 많은 질문 중의 하나에 대답하면서 주(主)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여, 새롭고도 더욱 나은 일생위에서 갓난아이처럼 새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한다.” 예수는 진정한 선행은 무의식중에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자선을 행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항상 강조하였다.

140:8.27 (1583.1) 세 사도들은 이 날 오후, 주(主)의 종교에는 영적 자기-반성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없음을 깨닫고 매우

놀랐다. 예수의 시절 이전과 이후에 있던 모든 종교는, 심지어 그리스도교에서도, 양심적인 자아-검증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종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예수의 일생의 철학은 종교적 내면-성찰이 없다. 목수의 아들은 성격 형성을 가르친 적이 없었다; 하늘의 왕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선언하면서, 성격 성장을 가르치셨다. 그러나 예수는 거만한 자기중심주의를 예방하는 수단으로서 하는 자아-분석을 금지하려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140:8.28 (1583.2) 왕국에 들어가는 권리는 신앙, 개인적 신념에 달려 있다. 왕국으로 가는 점진적인 상승에 참여하기 위해 치르는 대가(代價)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라도 사려는 비싼 진주와 같다.

140:8.29 (1583.3) 예수의 가르침은 약한 자나 노예들만을 위한 하나의 종교가 아니며,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종교이다. 그의 종교는 결코 신조나 신학적 규칙으로 구체화되지 않았으며(그의 시절 동안에), 그는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다. 그의 일생과 가르침은 온 세상의 모든 세대에게 영적 인도와 도덕적 가르침에 적합한 영감을 주는

이상적인 유산으로 후세에 전해졌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예수의 가르침은 모든 종교들로부터 따로 떨어져 서서, 그들 모두에게 살아있는 희망이 되고 있다.

140:8.30 (1583.4) 예수는 사도들에게, 종교가 사람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유일한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것은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념이었다. 그러나 열 두 사도들에게는 종교가 그들의 유일한 일이라고 단언하였다. 예수는 자신의 신도들에게, 그들이 진정한 문화를 추구하는데 방해가 될 그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다; 오직 전통에 얽매어 있던 예루살렘의 종교적 학파들로부터만 멀리 떨어졌다. 그는 개방적이며, 가슴이 넓고, 박식했으며, 참을성이 많았다. 자아-의식이 강한 연민은, 정의로운 삶을 사는 그의 철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140:8.31 (1583.5) 주(主)는 그 자신의 세대나 혹은 뒤이어지는 어느 세대의 비(非)종교적 문제를 위해서, 그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다. 예수는 영원한 실체들을 꿰뚫어보는 영적 통찰력을 개발하고 그리고 삶의 근원성 안에서 새로운 계획을 자극하기 원하였다; 그는 인간 종족의 저변에

갈려있는 영구적인 영적 필요에만 순전히 스스로를 깊이
관여시켰다. 그는 하느님과 동등한 선을 계시하였다. 그는
사랑—진리(眞), 아름다움(美), 선(善)—을 신성한 이상과
그리고 영원한 실체로 드높였다.

140:8.32 (1583.6) 주(主)는 사람 속에 새로운 영, 새로운
의지—진리를 알고, 온정을 체험하고, 그리고 선을
선택하기 위한 새로운 수용능력을 나누어 주려고—,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완전해지려는
영원한 충동과 더불어 하느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려는
의지를 사람 속에 창조하기 위해 왔다.

제 9 장. 헌납식이 있던 날

140:9.1 (1583.7) 그 다음 안식일에 예수는 자기 사도들과 함께
헌신의 시간을 가지셨고, 그들에게 성직수임식을 행했던
산지(山地)로 되돌아가셨으며; 그곳에서 길고도 훌륭한
감격적인 사적인 격려 말씀을 한 후에, 열 두 사도들의
헌납식을 엄숙하게 거행하였다. 이 안식일 오후에, 예수는
산허리에서 사도들을 자기 주위에 모아놓으시고, 자신이
세상에 그들만 남겨두고 떠나야만 할 그 날을 대비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그들을 맡겼다.

이때에는 더 이상의 새로운 가르침은 없었고, 단지 환담과 교제를 나누었다.

140:9.2 (1584.1) 예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실시되었던 성직수임식 설교의 많은 특성들을 회고하였고, 그런 다음 제자들을 한 사람씩 앞에 불러서 그들이 이제 자신의 대리자로 세상에 나아가도록 임명하였다. 주(主)의 헌납식의 훈시는 다음과 같다: “세상에 나아가 왕국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억눌린 자를 위로하며, 고통 받는 자를 보살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140:9.3 (1584.2) 예수는 사도들에게 돈이나 여벌의 옷을 지니지 말라고 충고하면서, “수고한 사람은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였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였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하라. 그러나 주의하라. 왜냐하면 너희 적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관리들과 총독들 앞에 불러갈 것인데, 이것은 너희가 이 복음을 믿기 때문이며, 너희

자신이 그들에게 나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재판관 앞에 끌어다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때에 그가 너희를 통해 말할 것이다. 너희들 중 일부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며, 너희가 이 땅에 왕국을 세우기 전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나의 영이 너희보다 먼저 세상 모든 곳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현존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니,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고, 그런 후에 이방인들에게로 가거라.”

140:9.4 (1584.3) 그들은 산에서 내려와 함께 세베대의 집으로 돌아갔다.

제 10 장. 헌납식 이후의 밤

140:10.1 (1584.4) 그 날 밤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므로 예수는 사도들에게 집안에서 가르치셨는데, 그들이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해 장시간 이야기를 하였다. 제자들은 정의로움—구원—을 얻는 방법으로써 어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종교만을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왕국에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가 의롭게 되어야만 한다.”고 거듭해서 말씀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하여,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게 되라.”고 하였다.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자신의 사도들에게 주(主)가 말씀하는 동안 내내 설명하였던 요지는, 자기가 세상에 가지고 온 구원은 오직 믿는다는 것과 단순하고도 진실한 신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요한은 옛 생활방식을 참회하는 회개의 세례를 설교했다. 그러나 너희는 하느님과 친교를 맺는 세례를 선포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만 회개를 권고하지만, 그러나 이미 왕국으로 들어갈 진실한 입구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 하느님의 자녀들의 즐거운 친교 안으로 그들을 들여보내라.” 그러나 갈릴리 어부 출신인 그들로서는, 왕국에 있어서는, 신앙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세상 일상생활 속에서 정의로움을 행하는 것보다 앞서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140:10.2 (1584.5) 사도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큰 고충은, 그들이 종교적 진리의 높은 이상과 영적 원리를 개인적 행위의 구체적인 규정으로 바꾸려는 경향이었다. 예수는 혼의 태도에 대한 아름다운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였지만, 그들은 이러한 가르침들을 개인적 행동에 있어서의 규칙들로 해석하려고 계속 고집하였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들이 주(主)가 한 말을 기억할 때, 그들은 그가 말로 하지 않은 것들은 거의 틀림없이 잊어버렸다. 그러나 예수 자신이 가르침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들은 점진적으로 그의 가르침에 동화되었다. 그의 언어로 행한 가르침을 통해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을 사도들은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점진적으로 깨달았다.

140:10.3 (1585.1) 사도들은 자기들의 주(主)가 멀리-퍼지는 우주의 모든 세상들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영적 영감을 주는 일생의 삶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깨닫지 못하였다. 때때로 예수가 그들에게 말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가 일은 이 세상에서 하지만 그 일은 그가 창조한 방대한 다른 세상들도 위해서라는 관념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예수가 그의 지상 일생을 유란시아에서 사셨던 것은 이 세상의

남녀들에게만 필사자의 삶의 개인적 모범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세상들의 모든 필사자들에게 고차원의 영적이고 영감적인 이상(理想)을 창조하려는 것이었다.

140:10.4 (1585.2) 그 날 저녁에 도마가 예수께 물었다: “주(主)여, 우리가 아버지의 왕국에 입장을 허락받을 수 있기 전에,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였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에 속지도 말며 또한 돼지 앞에 우리들의 진주를 던지는 죄를 범치 말라고도 경고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솔직히 어리둥절합니다.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가 도마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너희는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문자로 만들려는 데에 언제까지나 고집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했을 때에는, 쉽게 속아 넘어가거나, 믿는 것을 무작정 기꺼워 하라는 것이나, 즐거움을 주는 낯선 이를 재빠르게 신뢰하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예증에서 너희가 얻어야만 한다고 바랐던 것은, 어린아이-아버지 그 관계였다. 너희는

어린아이이다,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고자 찾아 나서는 곳은 너희 아버지의 왕국인 것이다. 모든 정상적 어린아이와 그 아버지 사이에는 납득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보장하는 자연본성적인 애정이 현재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위하여 거래해 보려고 마음먹는 모든 것을 언제까지나 가로막아주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나아가며 전도하려는 복음은 구원에 관련되어 있고 그 구원이 바로, 이 영원한 어린아이-아버지 관계의 신앙-실현에서 싹트고 자라나는 것이다.”

140:10.5 (1185.3) 예수님의 가르침의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께 대한 개별존재의 개인적 관계—바로 이 자녀-아버지 관계—에서 기원되는 그의 철학에서의 바로 그 도덕성이다. 예수님은 국가나 민족에게가 아니라, 개별존재에게 중점을 두셨다. 저녁식사 동안에, 예수님은 마태와 이야기하다가 어떤 행동의 도덕성은 개별존재의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예수님의 도덕성은 항상 긍정적이었다. 예수님이 다시 규정한 황금률은 능동적인 사회적 친교를 요구하였다; 구식의 부정적인 규율은 고립됨으로써 지켜졌다. 예수님은

도덕성의 모든 규칙과 의례를 제거하고 이를 영적 사고와 진실로 의로운 삶이라는 장엄한 차원으로 끌어올리셨다.

140:10.6 (1585.4) 이러한 예수의 새 종교에 실천적인 관계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의 가르침 속에서 발견되는 실천적인 정치적, 사회적, 혹은 경제적 가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진정한 개인적 종교체험의 자발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영의 열매를 현시하는 것처럼, 혼의 내적 체험의 자연스러운 결실들이었다.

140:10.7 (1585.5) 예수가 마태와 이야기하는 것을 완결하자 시몬 젤로떼가, “주(主)여,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녀인가요?”라고 질문하였다. 예수가 이에 대답하였다: “그렇다. 시몬아,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녀이며, 이것이 너희가 선포하려는 그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러한 교리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는 새롭고, 이상하고, 놀라운 선언이었다. 그리고 예수는 이 진리를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자신들의 형제들로 대하라고 가르치셨다.

140:10.8 (1585.6) 안드레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주(主)는 자신의 도덕성에 대한 가르침은 자신의 삶에 대한 종교와 떼어놓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셨다. 그는 사람의 본성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사람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도덕성을 가르쳤다.

140:10.9 (1585.7) 요한이 예수께, “주(主)여, 하늘의 왕국은 어떤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예수가 대답하였다: “하늘의 왕국은 이 세 가지 본질들로 이루어졌는데, 첫째 하느님의 주권성의 사실에 대한 인정이고; 둘째 하느님과 의 아들신분에 대한 진리 안에서의 믿음이다; 셋째 하느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하느님을 닮아 가는—최극 인간의 소망에 대한 효력성 안에서의 신앙이다.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인데, 모든 필사자들은 구원의 이 세 가지 본질 모두를 신앙으로 얻게 된다.”

140:10.10 (1586.1) [140:10.10] 그리하여 이제 기다림의 주간이 끝나고, 그들은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

제 141 편 대중을 위한 일의 시작

141:0.1 (1587.1) 그 주일의 첫날인 서기 27년 1월 19일에 예수와 12사도들은 벳세다에 있던 그들의 본부를 떠날 준비를 마쳤다. 그 12명은 주(主)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몰랐으며 단지 4월에 있는 유월절 축제에 참석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과 자기들이 요단 계곡을 거쳐서 여행할 예정이라는 것만 알았을 뿐이다. 사도들의 가족들과 다른 제자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러 가는 그들에게 작별과 성공을 빌기 위해 왔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베대의 집을 정오가 될 때까지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141:0.2 (1587.2)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주(主)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드레가 그를 찾으러 나섰다. 얼마 후에 그는 해변 아래쪽에서 배에 앉아 계시는 예수를 발견했으며, 그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12사도들은 종종 주(主)가 근심에 차있는 모습을 종종 보았었고, 그가 잠깐씩 심각한 마음 상태에 잠겨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었지만, 그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안드레는 자기들의 예루살렘 출발을 앞두고 주(主)가 그렇게 상심해 계시는 것을 보고 놀라서 예수께 가서 물었다: "주(主)여, 아버지의 왕국을 선포하러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이 중요한 날에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요? 저희들 중의 누구로 인하여

상심하였습니까?" 예수는 안드레와 함께 12사도들에게로 돌아가시면서 대답하였다: "너희 중의 누구도 나를 상심하게 하지 않았다. 내가 슬퍼진 것은 단지 나의 아버지 요셉의 식구 중에서 아무도 우리를 전송하러 오겠다고 기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에 릿은 오빠인 요셉을 방문하러 나사렛에 가 있었고 다른 식구들은 자부심과 실망과 오해와 감정이 상한 결과로 빠진 하찮은 분개심으로 그를 멀리하고 있었다.

제 1 장. 갈릴리를 떠남

141:1.1 (1587.3) 가버나움은 티베리아스에서 그리 멀지 않았기에 예수의 명성은 갈릴리 전체와 그밖에 있는 지역으로까지 널리 퍼져 있었다. 예수는 헤롯이 머지않아 자신의 일을 알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으며; 그래서 그는 사도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해서 유대 지방으로 여행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100여명이 넘는 신도들의 집단이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했으나 예수는 그들에게 요단으로 내려가는 사도 집단들의 여정을 따르지 말기를 간청하였다. 그들은 뒤에 남아 있기로 동의는 하였지만, 그들 대부분이 며칠 뒤에 주(主)를 뒤쫓아 갔다.

141:1.2 (1587.4) 예수와 사도들만이 여행을 한 첫날에 그들은 타리케아까지 갔고, 그곳에서 그 날 밤을 지냈다. 다음날 그들은 일 년 전에 요한이 설교를 하였고 예수가 세례를 받아들였던 장소인 펠라 근처의 요단강까지 여행하였다. 여기에서 그들은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서 2주 이상이나 머물렀다. 첫 주일의 주말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와 12사도가 기거하던 곳 가까이에 있는 야영지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갈릴리, 페니키아, 시리아, 데카폴리스, 페레아, 유대에서부터 모여들었다.

141:1.3 (1588.1) 예수는 대중(大衆)설교를 하지 않았다. 안드레는 군중들을 오전 오후 집회로 나누어서 그들을 위한 설교자를 임명하였다; 저녁 식사 후에는 예수가 12사도들과 이야기를 나누셨다. 그는 새로운 가르침은 주시지 않고 단지 그 전의 가르침들을 검토하였고 많은 질문들에 답변하였다. 어느 날 저녁 밤에 그는 12사도들에게 이 장소 가까이에 있는 언덕에서 그가 보냈던 40일 간에 관해 얘기하였다.

141:1.4 (1588.2) 페레아와 유대에서 온 그 사람들 대다수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기에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였다. 사도들은, 어떤 면에서도 요한의 가르침에 거슬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요한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많은 진전을 이룩하였으며, 그래서 새로 된 제자들에게도 이때에는 세례를 주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한의 추종자들에게는, 만약 예수가 진정으로 요한이 공표했었던 그 모든 것이라면, 그가 요한을 감옥에서 구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항상 걸림돌이 되었다. 요한의 제자들은 왜 예수가 자신들의 사랑하는 영도자가 그런 잔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 주지 않았는지 결코 납득할 수 없었다.

141:1.5 (1588.3) 밤이면 밤마다 안드레는 자기 동료 사도들에게 세례자 요한의 추종자들과 원만하게 지내야하는 미묘하고도 어려운 과업을 조심스럽게 가르쳤다. 예수의 대중(大衆) 사명활동의 첫 해 동안에는, 그의 추종자들의 4분의 3 이상이, 이전에 요한을 따랐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아들였었던 자들이었다. 서기 27년인 이 해의 전부는 페레아와 유대지방에서 요한의 일을 넘겨받으며 조용하게 지나갔다.

제 2 장. 하느님의 법과 아버지의 뜻

펠라를 떠나기 전날 밤, 예수는 사도들에게 새로운 왕국에 관해 좀 더 가르치셨다. 주(主)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다가오는 하느님의 왕국을 찾으라고 배워왔고, 그리고 이제 나는 오랫동안 찾아오던 이 왕국이 아주 가까이 있으며 이미 이곳에 그리고 우리들 한가운데에 있음을 선언하는 바이다. 모든 왕국에는 왕이 그의 왕좌에 앉아있고 그리고 그 권역의 법을 선포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너희는, 메시아가 다윗의 왕좌에 앉아 그 자리에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온 세계의 법을 제정하고, 유대 백성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 위에서 영화롭게 되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늘의 왕국의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납득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왕국은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하느님의 법을 실현하고 인정하는 것임을 내가 선언하노라. 진실로, 이 왕국에는 한 분 왕이 계시며, 그 왕은 나의 아버지이자 너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충실한 신하들이지만, 그런 사실을 훨씬 초월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이라는 그 변환되어지는 진리이다. 내 일생 안에서 이 진리는

모두에게 현시가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는 왕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것은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무한자의 왕좌는 하늘들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원한 처소이다; 그는 우주들을 넘어 우주들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자신의 법을 선포한다. 또한 아버지는 필사자 사람들의 혼 안에서 살도록 그가 보내 온 영(靈)에 의하여, 땅 위에 있는 그의 자녀들의 가슴 안에서 다스리신다.

141:2.2 (1588.5) "너희가 이 왕국의 신하일 때, 너희는 참으로 우주 통치자의 법을 듣도록 되어졌으나; 내가 선포하러 온 왕국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신앙으로 너희 자신들이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부터는 너희는 힘이 가득한 왕의 법을 복종하는-신하로 너희 자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성한 아버지의 특별한 자녀들로 보인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겠는데, 아버지의 뜻이 너희의 율법이 될 때에는, 너희가 왕국 안에 거의 들지 못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진정으로 너희의 뜻이 될 때에는, 그로서 왕국은 너희 안에 세워진 체험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진실로 왕국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이 너희의 율법이 될 때에는, 너희가 고상한

노예적인 신하이지만; 신성한 아들관계의 새 복음을 너희가 믿을 때에는,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뜻이 되며 너희는 왕국의 해방된 아들, 하느님의 자유로운 자녀라는 높은 위치로 오른다."

141:2.3 (1589.1) 사도들 중에서 몇 몇이 이 가르침의 무언가를 파악했지만, 야고보 세베대를 제외하고는 , 이 엄청난 발표의 모든 의의(意義)를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이 말들은 그들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었고 훗날 봉사기간 내내 그들의 사명활동을 기쁘게 만들었다.

제 3 장. 아마투스에 체류함

141:3.1 (1589.2) 주(主)와 사도들은 아마투스 근처에서 거의 3주간이나 머물렀다. 사도들은 군중들에게 하루에 두 번씩 설교하는 것을 계속하였고 예수는 각 안식일 오후에 설교하였다. 수요일 노는 시간이 계속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안드레는 한 주에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두 명씩의 사도들이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한편, 안식일 예배봉사동안에는 모두가 같이 일을 하였다.

141:3.2 (1589.3)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대중 설교의 대부분을 하였다. 빌립, 나다니엘, 도마, 시몬은 개별적인 일을 많이

하였고 질문자들의 특별 모임을 위한 학급을 수행하였다; 쌍둥이 형제는 그들의 일반적인 질서 유지 감독 일을 계속했고, 한편 안드레, 마태, 유다는 3인의 일반관리 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그럼에도 그들 각자는 종교적인 일도 상당히 하였다.

141:3.3 (1589.4)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들과 새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해와 의견 차이를 중재하는 임무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며칠마다 심각한 경우들이 발생하곤 했으나, 안드레는 그의 사도 연관-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투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적어도 임시적이거나 다소간의 합의가 나오도록 유도하면서 운영하였다. 예수는 이러한 회의들 중의 어떤 것에도 참여하기를 거부하였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들에 대한 적절한 조절에 관하여 어떤 충고도 주지 않았다. 그는 사도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곤란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조언도 전혀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었다. 안드레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그에게 오면, 그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곤 하였다: "주인이 그의 손님의 가족 문제에 끼어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다;

현명한 부모는 절대로 자기 자녀들의 하찮은 싸움에서 어느 한 쪽을 편들지 않는다."

141:3.4 (1589.5) 주(主)는 뛰어난 지혜를 보였고 자신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완전한 공정을 현시하였다. 예수는 진정으로 사람들의 주(主)이었다; 매력과 힘이 병합된 그의 개인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연관-동료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의 고된 생활과 방랑의 생활 그리고 집이 없는 생활에는, 미묘한 위엄 있는 감화력이 있었다. 그의 가르침에서의 권위 있는 태도, 명쾌한 논리, 추론의 강한 힘, 현명한 통찰력, 주의 깊은 그의 마음, 견줄 데 없는 자태, 숭고한 관용 속에는 지적(知的) 매력과 영적으로 이끄는 힘이 있었다. 그는 단순했고 남자다웠으며 정직했고 두려움이 없었다. 주(主)의 현존 속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모든 육체적 그리고 지적 영향력과 더불어, 거기에는 또한 그의 개인성과 연관되기 시작했던 모든 그러한 존재의 영적 매력들—참을성, 부드러움, 온화함, 관대함, 그리고 겸손함—도 있었다.

141:3.5 (1589.6)

나사렛 예수는 진실로 강하고 힘찬
개인성이었다; 그는 지적인 힘이자 영적(靈的)
요새(要塞)였다. 그의 개인성은 그의 추종자 가운데
영적으로 따르는 여인들뿐만 아니라, 학식이 높고 지적인
니고데모와, 십자가에서 보초임무를 맡은 대장, 억센 로마
병정까지도 이끌리게 하였으며, 그는 주(主)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을 끝마쳤을 때 이렇게 말했다: "이는 진실로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혈기왕성하고 거친 갈릴리
어부들은 그를 주(主)라고 불렀다.

141:3.6 (1590.1)

예수의 초상화들은 가장 한탄스럽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초상화들은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었는데; 예수가 만일 너희 화가들이 흔히 그렸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성전의 상인들이 예수 앞에서 도망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모습은 위엄이 깃든
남자다움이었다; 그는 선하였지만, 꾸밈이 없었다. 예수는
상냥하고, 달콤하며, 부드럽고 그리고 친절하면서
신비적인 그러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의 가르침은
감격이 일어나도록 역동적이었다. 그는 호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재로 선한 행동을 행하였다.

141:3.7 (1590.2) 주(主)는 결코, "나태한 너희 모든 자들과 몽상가인 너희 모든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여러 번 말씀하기를, "수고하며 일하는 너희 모든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영적인 강한 힘을 주며— 쉬게 할 것이다." 주(主)의 멍에는, 참으로, 쉬운 것이지만, 그는 결코 그것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았다; 모든 개별존재는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 멍에를 메지 않으면 안된다.

141:3.8 (1590.3) 예수는 희생, 곧 자부심과 이기심에 대한 희생으로, 정복을 묘사 하였다. 자비를 보여줌으로서, 그는 모든 원한, 불평, 분노, 그리고 이기적 힘과 복수에 대한 욕정으로부터의 영적 해방을 묘사하려고 뜻하였다. 그리고 그가 "악에 저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을 때, 그는 나중에, 죄를 묵과하거나 혹은 사악한 불의와 가까이 지내라는 조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그는 용서함에 대해 좀 더 가르치고자 하였는데, 이는 "사람의 개인성에 대한 악한 대접에 저항하거나 개인적 존엄성에서의 사람의 감성에 대한 악한 모욕에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 4 장. 아버지에 대한 가르침

141:4.1 (1590.4) 아마투스에 체류하는 동안 예수는 사도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르치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다; 그는 하느님은 아버지이시다 라는 것, 땅위의 그의 죄 많은 자녀들에 대하여 처벌대상자를 가려내는 데 몰두하는, 위대하고 최극의 장부 기입자이거나, 나중에 그들에 대한 심판관 자리에 앉아 모든 창조체의 올바른 심판으로, 그들에게 사용되어질 죄나 악을 기록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였다. 유대인들은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하느님을, 비록 민족의 아버지지만, 모든 이의 왕으로 이해해 왔었지만, 이전에는 많은 숫자의 필사 사람들이, 사랑이 많으신 개별존재의 아버지로서의 하느님 관념을 가진 적이 결코 없었다.

141:4.2 (1590.5) "왕국의 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라는 도마의 질문에 예수가 대답하였다: "하느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며, 종교—나의 복음—는 너희가 그분의 자녀라는 진리를 인식하고 믿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일생과 가르침을 통하여 이러한 두 가지의 관념들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너희와 함께 육신으로 있는 것이다."

141:4.3 (1590.6) 예수는 또한 사도들의 마음이 종교적 의무로 희생동물을 제공하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애를 쓰셨다. 그러나 일상적인 희생물을 제공하는 종교에 젖어 왔던 이 사람들에게는 그가 뜻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더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主)는 자기 가르침에 지치지 않았다. 한 가지 설명으로 모든 사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실패하면, 그는 내용을 다시 말하거나, 설명을 목적으로 다른 종류의 비유를 들곤 하였다.

141:4.4 (1590.7) 바로 이 시기에, 예수는 12사도들에게 그들의 사명인 "고통 받는 자를 위로하며 병든 자를 보살피는 일"에 관해 좀 더 많이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주(主)는 그들에게 전인(全人)—개별 남녀를 형성하는 몸, 마음, 영의 연합—에 관해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예수는 자신의 연관-동료들에게 그들이 당면하게 될 세 가지 형태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인간의 질병으로 인한 슬픔으로 고통 받는 모든 이들을 그들이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다음의 것들을 인식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141:4.5 (1591.1)

1. 육신의 질병—보통 육체적인 병이라고 간주되는 그러한 고난들.

141:4.6 (1591.2)

2. 고통 받는 마음—나중에 가서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장애들과 혼란들로 나타나는 그러한 비육체적인 고통들.

141:4.7 (1591.3)

3.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힘.

141:4.8 (1591.4)

예수는 사도들에게 그 당시에 흔히 더러운 영이라고도 불린 이들 악한 영들의 본성과, 그리고 기원에 관련한 여러가지를 여러 기회에서 그의 사도들에게 설명하였다. 주(主)는 악한 영들에 사로잡히는 것과 정신 이상의 차이점을 잘 알았지만, 사도들은 그렇지 못했다. 유란시아의 초기 역사의 관하여 그들이 가진 제한된 지식으로는, 예수는 이 문제를 그들에게 충분히 납득하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들에게 이들 악한 영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였: "그들은,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 그리고 왕국이 위대한 힘과 영적 영광으로 올 때,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그러한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준 이후에는,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게 될 것이다."

141:4.9 (1591.5) 한 주일이 두 주일이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되며, 이 온 한해가 지나는 동안, 사도들은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제 5 장. 영적 합일

141:5.1 (1591.6) 아마투스에서 있었던 모든 회의들 중에서 가장 획기적이었던 것은, 영적 합일(合一)에 관한 토의와 관계되었던 부분이었다. 야고보 세베대가 묻기를, "주(主)여, 저희는 어떻게 해야 서로 비슷하게 보고 그렇게 하여 저희들 안에서 좀 더 나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는 자신의 영 안에서 동요가 일어났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야고보야, 야고보야, 내가 언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서로 비슷하게 보라고 가르쳤느냐? 필사자들이 하느님 이전까지 기원성과 자유에서의 개별존재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끝 날에 이르는 영적 해방을, 선포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나는 사회적인 조화나 우애적인 평화가, 자유로운 개인성과 영적 기원성을

희생한 대가(代價)로 얻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내가 나의 사도들인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연합일이다.—그리고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온 마음을 다 바쳐 행하는, 너희 연합된 봉헌의 기쁨 안에서 너희가 체험할 수 있다. 영적으로 한결같이 위해서, 너희가 한결같이 보거나 한결같이 느끼거나 더 나아가 한결같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영적 합일은, 너희 각자 안에 거하면서 갈수록 점점 더 지배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의 선물을 너희가 의식함에서 온다. 너희의 사도간의 조화는, 너희 각자의 영적 소망의 기원과 본질과 운명이 동일하다는 사실에서 나와야만 한다.

141:5.2 (1591.7) “이런 식으로 너희는 각자 안에 거주하는 파라다이스 영들의 존재를 상호 의식하는데서 나오는 영적 목적과 영적 납득의 완전한 합일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 개별존재의 지적 사고(思考), 번득스러운 감정, 사회적 행위에 대한 태도에서의 극도의 다양성에 바로 직면하면서 이러한 모든 심오한 영적 합일을 즐기게 될 것이다. 너희의 영적 본성과 신성한 경배와 형제의 사랑이라는 영적 열매가 그렇게 합쳐져서 너희의 삶을 보는 모든 자들이 이러한 영적 정체성과 혼의 합일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동안, 너희의 개인성들은 신선하게 다양화되고 눈에 띄게 다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보게 될 것이고,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방법을 만족스럽게 배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들이 기원적으로 부여받은 마음, 몸, 혼의 자질을 가지고 봉사를 할지라도 너희는 하느님께 대한 봉사의 합일을 성취할 수 있다.

141:5.3 (1592.1) "너희의 영적 합일은 두 가지를 내포하는데, 그것들은 항상 개별 신도들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데서 나타난다: 첫째로, 너희는 생의 봉사에 있어서 공통적인 동기를 가지게 되는데; 너희 모두는 다른 모든 것을 제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둘째로, 너희 모두는 실존(實在)에 있어서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는데; 너희 모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고, 그로서 너희가 그분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우주에게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41:5.4 (1592.2) 12사도들을 훈련시키는 동안, 예수는 여러 차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되돌리셨다. 그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비록 선한 사람의 종교적 해석이더라도 이에

따라, 독단적이 되거나 규범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반복하여 말씀하였다. 그는 자신의 사도들에게, 신자들을 인도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왕국 복음 안에 교리(敎理)의 제정이나 전통을 세우지 말도록 거듭 거듭 경고하였다.

제 6 장. 아마투스에서의 마지막 주간

141:6.1 (1592.3) 아마투스에서 보낸 마지막 주간이 끝날 즈음, 시몬 젤로떼는 다마스쿠스에서 사업을 하는 페르시아 사람인 테헤르마를 예수께로 데려왔다. 테헤르마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러 가버나움으로 갔었으며, 그곳에서 예수가 요단강으로 내려가 예루살렘 쪽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 나섰다. 안드레가 시몬에게 테헤르마를 가르치도록 하였었다. 테헤르마가 불은 단지 순결하고 거룩한 한 분에 대한 눈에 보이는 상징일 뿐이라고 열심히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그 페르시아 사람을 "불을 신봉하는 사람"으로 여겼다. 예수와 이야기를 한 후 그 페르시아 사람은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듣기 위해 며칠 동안 더 머물러 있을 뜻을 밝혔다.

시몬 젤로떼는 예수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주(主)에게 이렇게 물었다: "왜 저는 그를 설복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왜 그는 그렇게 나에게는 저항하고 선생님에게는 쉽게 귀를 기울였습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시몬아, 시몬아, 구원을 구하는 자들의 가슴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고 얼마나 여러 번 말해야 하겠느냐? 이러한 굶주린 혼속으로 무엇인가를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라고 얼마나 여러 번 말했느냐? 사람들을 왕국으로 인도해라, 그러면 위대하고 살아있는 왕국의 진리들이 곧 모든 심각한 실수들을 몰아낼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기쁜 소식을 제시할 때, 그가 실체로서 하느님의 한 아들인 것을 그에게 설득시키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어둠에 앉아 있는 자에게 구원의 빛을 가져다주고 있다. 시몬아,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처음 왔을 때, 그가 모세와 다른 예언자들을 공공연히 비난하고 그리고 새롭고 나은 일생의 길을 선포하였더냐? 아니다. 나는 너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고 너의 조상들이 단지 부분적으로만 보았던 것의 완전한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러 왔다. 그러니 시몬아, 이제 가서 왕국을 가르치고 설교하며, 한 사람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왕국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후에 그런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신성한 왕국 안에서 혼의 진보적인 향상에 관계되는 가르침을 주어야 할 때이다."

141:6.3 (1592.5) 시몬은 이러한 말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예수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였고 페르시아 사람인 테헤르마는 왕국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141:6.4 (1592.6) 그 날 밤, 예수는 왕국에서의 새 일생에 관하여 사도들에게 강연하였다. 그가 말스민 일부분은 이렇다: "너희가 왕국에 들어갈 때는, 너희는 거듭 난다. 오직 육신으로 난 자들에게는 너희가 영의 깊은 일들을 가르칠 수 없다; 영의 향상되는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이 영으로 난 자인지를 살펴보아라. 너희가 먼저 그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가기 전 까지는, 그 사람들에게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마라. 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람들의 자녀관계라는 교리를 너희가 강연하기 이전에, 사람들을 하느님께,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로써 소개하라. 사람들과 다투지

마라—항상 참을성을 가져라. 그것은 너희의 왕국이 아니다; 너희는 단지 대사들일 뿐이다. 단지 나아가며 선포하라: 하늘의 왕국은 이렇다—하느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며 너희는 그분의 자녀들이며 만약 그것을 온 가슴으로 믿으면 이러한 기쁜 소식은 너희의 영원한 구원이 된다."

141:6.5 (1593.1) 아마투스에 체류하던 동안 사도들은 많은 향상을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요한의 제자들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제안도 주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하였다. 심지어는 세례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까지도 예수가 말스한 것은 오직 다음과 같았다: "요한은 진실로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때, 너희는 영(靈)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제 7 장.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141:7.1 (1593.2) 2월 26일에 예수와 그의 사도들과 큰 집단의 추종자들이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페레아 지역의 베다니 가까운 곳에 있는 여울까지 여행하였는데, 그곳은 다가오는 왕국에 대하여 요한이 첫 선포를 한 장소였다.

예수와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4주 동안을 이곳에서 가르침과 설교를 하며 남아 있었다.

141:7.2 (1593.3)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머물던 둘째 주간에, 예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강을 건너 여리고의 남쪽에 있는 언덕으로 3일 간의 휴양을 떠났다. 주(主)는 이들 세 명에게 하늘의 왕국에 관한 새롭고 차원 높은 진리를 많이 가르치셨다. 이 기록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이들 가르침들을 다음과 같이 재편성하고 분류하고자 한다:

141:7.3 (1593.4) 예수는, 그의 제자들이 왕국의 훌륭한 영적 실체를 맛보게 되어서, 그러한 사람들로 세상에 살고, 그들의 생활을 봄으로써 왕국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하여 그들이 왕국의 길들에 대한 신도들의 질문을 인도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려고 애쓰셨다. 진리를 구하는 그러한 모든 진지한 탐구자들은, 영원하고 신성한 영적 실체들과 함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는 신앙 선물에 대한 기쁜 소식 듣기를 언제나 기뻐한다.

141:7.4 (1593.5) 주(主)는 왕국 복음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들에게 그들의 유일한 과업은 하느님을 개별적인 사람에게 그의

아버지로서 계시하는 것—이들 개별적인 사람에게 아들임을-의식하게 되어가는 것; 그 다음 이 동일한 사람을 하느님에게 그의 신앙 아들로써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근본적인 계시들 둘 모두가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는 진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다. 예수의 종교는 전적(全的)으로 이 세상에서의 그의 수여 일생에서의 삶에 근원이 되고 있다. 예수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어떤 책도 법도, 혹은 개별존재의 종교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인간 조직체에 대한 어떤 형태도 뒤에 남기지 않았다.

141:7.5 (1593.6) 예수는 자신이 모든 다른 인간 관계성에서 언제까지나 우선을 삼아야하는 개인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사람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친밀한 영적 동료관계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사회적 지위의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자기 자녀들에게 그가 주었던 유일한 상은: 이 세상에서는—영적 기쁨과 신성한 교제; 다음 세상에서는—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신성한 영적 실체로 향상하는 영원한 일생이었다.

141:7.6 (1593.7) 예수는 왕국에 대한 가르침에서, 그가 첫째로 중대한 두 가지 진리라고 칭하였던 것을 강조했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은 진리를 진정으로 인식함을 통하여 인간 해방의 성취라는 혁명적인 가르침과 연관된 신앙, 오로지 신앙으로 인한 구원의 달성을 말한다. 예수는 육신으로 현시하신 진리였으며 자기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되돌아 간 후에 자신의 모든 자녀들의 가슴속에 자신의 진리의 영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였다.

141:7.7 (1594.1) 주(主)는 이 사도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한 전체 세대를 위한 진리의 정수들을 가르치셨다. 그들이 자주 그의 가르침에 귀 기울였고 그러한 때는, 실제로 있어서는 그의 말은 다른 세상들의 영감(靈感)과 교화를 안중에 둔 것들이었다. 그는 일생의 새롭고도 기원적인 계획을 본보기로 보였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의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영역의 필사자로서 모든 세상들을 위하여 자기 일생을 사셨다.

141:7.8 (1594.2) 왕국의 계획을 펼쳐 보임에 있어서 자신의 아버지를 인식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수는 자기가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그 전에 있었던 시대의 진화 종교들에서 무시되었던, 바로 그 가난한 자의 계층과 함께 그의 일을 시작하였다. 그는 어떤 사람도 경멸하지 않았다; 그의 계획은 우주까지도 포함하는 세계적인 것이었다. 그가 이러한 발표를 매우 대담하고 강하게 하였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까지도 그가 어쩌면 제 정신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려는 유혹을 받았다.

141:7.9 (1594.3) 그는 자신이 이 증여의 임무를 맡아 지상에 온 것은 소수의 지상 창조체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온 우주를 망라하여 모든 세상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간의 일생의 표준을 설립하고 실증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 사도들에게 부드럽게 밝히셨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은 최고의 완전성에 심지어는 우주 아버지의 마지막 선함에 이르기까지 접근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의 말들을 파악할 수 없었다.

141:7.10 (1594.4) 그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파견되어 물질적인 마음에 영적 진리를 제시해 주는 선생의 자격으로

역할하려고 왔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는 정확하게 그 일을 하였다; 그는 설교자가 아닌 선생이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설교자였다. 예수의 설교는 매우 효력적이었지만, 그것은 힘 있는 웅변이나 감정에 호소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독특한 개인성에 의한 때문이었다. 예수는 사람들의 혼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였다. 그는 사람의 영의 선생이었지만 마음을 통해서 가르치셨다. 그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셨다.

141:7.11 (1594.5) 예수는 증여 이전에 받았던 자신의 파라다이스 형제인 임마누엘의 지시를 소개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일은 어떤 면에서는 "높은 곳에 있는 연관-동료"의 명령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암시한 것은 바로 이 때였다. 그는 자신은 아버지의 뜻,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그렇게 전심을 다한 단 한가지의 목적에 동기를 두었기에, 그는 세상에서의 악에 의해 근심스러운 괴롭힘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141:7.12 (1594.6) 사도들은 예수의 흔들리지 않는 친절함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쉽게 주(主)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지만, 그는 항상 모든 인간들로부터 독립하여 벗어나 사셨다. 어떤 순수하게 인간 영향에 의해 지배되었거나 혹은 약한 인간 판단에 자신을 맡긴 적이 한 순간도 없었다. 그는 대중의 의견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칭찬에 의해 영향을 입지 않았다. 그는 오해를 풀려고 주저하거나 허위 진술에 분개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는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도 충고나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다.

141:7.13 (1594.7) 야고보는 얼마나 예수가 시발점에서 끝을 내다보시는 것 같았는지 그것에 감탄하였다. 주(主)는 놀라는 일이 거의 없어 보였다. 그는 절대로 흥분하거나 화내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결코 어떤 사람에게도 사과한 적이 없었다. 그는 때때로 슬픔에 젖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다.

141:7.14 (1594.8) 그의 모든 신성한 자질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가 인간이었다는 것을 요한은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예수는 하나의 사람으로 사람들 안에서 살았고, 납득했고, 사랑했고, 그들을 다루는 방법을 아셨다. 그의

개인적 일생에서 그는 그렇게 인간이었음에도 그렇게
흠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사심-없었다.

141:7.15 (1595.1)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때에 예수가 한 말들을
많이 납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우아한 말들은
그들의 가슴속에서 머물렀으며,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한 후에 그것들은 훗날의 그들의 사명활동을 매우
풍부하게 하고 기쁘게 만들어 주었다. 이 사도들이
주(主)의 말을 충분하게 이해 못했던 것은 이상할 것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새로운 시대의 계획을 그들에게
내보였기 때문이었다.

제 8 장. 여리고 에서의 일

141:8.1 (1595.2)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의 4주간의 체류기간을
통하여 안드레는 매 주마다 두 명의 사도들에게 하루나
이틀 동안 여리고로 가도록 여러 차례 배정하였다. 여리고
에는 많은 요한의 신도들이 있었고 그들의 대다수는
예수와 그의 사도들의 좀 더 향상된 가르침을 환영하였다.
이러한 여리고의 방문에서 사도들은 병든 자를
보살피라는 예수의 좀 더 세부적인 지시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도시의 각 가정을 방문해서 각기 고통 받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노력하였다.

141:8.2 (1595.3) 사도들은 여리고에서 대중을 위한 일을 좀 하였지만 그들의 노력은 주로 좀 더 조용하고 개별적 성질의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왕국의 기쁜 소식이 병자들에게 매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기들의 메시지가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수가 12사도들에게 전적으로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설교하고 고통 받는 자들을 위하여 사명활동할 것을 명령한 것이 처음으로 충만하게 효과를 거둔 곳은 여리고였다.

141:8.3 (1595.4)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에서 멈추었고, 예수와 상의를 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던 대표단(代表團)을 만났다. 사도들은 여기에서 하루만 지낼 계획이었는데 동쪽에서 도착한 이 진리의 구도자들이 도착하자 예수는 그들과 3일을 지체하였다. 그들은 하늘의 왕국의 새로운 진리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그들 각자의 집으로 행복에 차서 돌아갔다.

제 9 장. 예루살렘을 향한 출발

141:9.1 (1595.5) 3월의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 예수와 사도들은 예루살렘 쪽으로 언덕을 지나 여행을 시작하였다. 베다니의 나사로는 예수를 만나러 요단에 두 번 내려왔었으며, 주(主)와 그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자 하는 기간 동안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 집에 그들의 본부를 두도록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다.

141:9.2 (1595.6) 요한의 제자들은 군중들을 가르치며 세례를 주면서 요단강 건너의 베다니에 남아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는 12사도들만 데리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다. 여기에서 예수와 사도들은 유월절 행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취하고 기분을 새롭게 하며 5일간 머물렀다. 주(主)와 사도들이 오빠의 집에 체류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했던 일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141:9.3 (1595.7) 4월 6일 일요일 아침에 예수와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으며; 이것이 주(主)와 12사도가 함께 그 곳에 있었던 맨 처음이었다..

제 142 편 예루살렘에서의 유월절

142:0.1 (1596.1) 4월에는 예수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일했는데, 매일 밤마다 저녁시간을 베다니에서 지내기 위해 도시 밖으로 나갔다. 예수 자신은 매주 하루나 이틀 밤은 그리스파 유대인인 플라비우스의 집에서 지냈으며 많은 저명한 유대인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은밀히 그 곳으로 찾아왔다.

142:0.2 (1596.2) 예루살렘에서의 첫째 날에 예수는 한때 높은 사제이었고 세베대의 부인 살로메의 친족이며 자신의 옛날 친구인 안나스를 방문하였다. 안나스는 예수와 그의 가르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예수가 그 높은 사제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거리감을 가지고 그를 대했다. 예수가 안나스의 냉정함을 눈치 채시고 곧 바로 그 집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두려움이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주범이고 자부심이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다; 당신은 자신을 배반하여, 기쁨과 해방을 파괴하는 이 두 가지 모두의 노예가 되고자 하는가?” 그러나 안나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주(主)는 그가 사람의 아들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그의 사위와 앉아 있기 전까지는 그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

제 1 장. 성전에서의 가르침

142:1.1 (1596.3) 이 달 내내, 예수나 또는 사도 중의 하나가 매일 같이 성전에서 가르쳤다. 유월절 군중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 성전 안에 있는 가르치는 장소의 입구를 찾기 어렵게 되자, 사도들은 신성한 경내 밖에서 많은 가르침을 수행하였다. 그들의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42:1.2 (1596.4) 1.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142:1.3 (1596.5) 2.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너희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142:1.4 (1596.6) 3. 왕국 안에서는 사랑,—한편으로는 너희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최극의 헌신이 삶의 규칙이다.

142:1.5 (1596.7) 4.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각자의 개인적 일생 속에서 영의 열매를 맺는 것이, 왕국의 율법이다.

142:1.6 (1596.8) 유월절 축제에 왔던 군중들은 예수의 이러한 가르침을 들었으며 그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좋은 소식으로 기쁨을 향유하였다. 우두머리 사제들과

유대인들의 통치자들은 예수와 그의 사도들에 대해 많이
염려하게 되었고 그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토론하였다.

142:1.7 (1596.9) 성전 안에서와 주위에서 가르치는 일 이외에도,
사도들과 다른 신도들은 유월절 군중들 속에서 많은
개인적 일을 하였다. 관심을 가진 이 남자와 여자들이
예수의 메시지에 관한 소식을 이 유월절 축제로부터
로마제국의 가장 먼 지방들과 또한 동방에까지 전했다.
이것이 왕국 복음이 외부 세상으로 퍼지는 시발점이
되었다. 예수의 사명활동은 더 이상 팔레스타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제 2 장. 하느님의 진노

142:2.1 (1597.1) 크레테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한 유대인
부자(富者) 상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와의
사적인 회견을 안드레에게 요청하였다. 안드레는
예수와의 이 은밀한 회합을 다음 날 저녁 플라비우스의
집에서 갖도록 주선하였다. 이 사람은 주(主)의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하느님의 왕국에 대해 좀
더 충분하게 물어보기 위해 찾아왔다. 야곱은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랍비시여, 모세와 옛날 선지자들은, 야훼는 큰 진노를 가지고 계시며 크게 화내시는 하느님이신 질투의 하느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말하기를 그분은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고 그분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하느님이 모든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이 새로운 하늘의 왕국 안으로 그들을 모두 환영하는, 친절하고 연민이 가득한 아버지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42:2.2 (1597.2) 야곱이 말을 끝내자 예수가 대답하였다: “야곱아, 너는 옛날 선지자가 그들 시대의 빛에 따라서 그들 세대의 자녀들을 가르쳤음을 잘 표현하였다.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의 본성에 대한 개념은, 모세의 시절들로부터 아모스의 시절을 거쳐 선지자 이사야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확대되고 성장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영광으로 아버지를 현시(顯示)하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기 위해 육신으로 왔다. 이 왕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선한

뜻의 메시지로서 널리 퍼질 때, 모든 민족들의 종족들 사이에서는 좀 더 개선되고 나은 관계가 자라나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아버지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서로 각자를 더욱 더 사랑하게 될 것이기에, 그와 같이 이 땅의 자녀들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잘 납득하게 될 것이다. 야곱아, 선하고 진실된 아버지는 자기 가족을 전체로—하나의 가족으로—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개별 구성원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보호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142:2,3 (1597.3)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격에 관한 상당한 토론이 있는 후에 예수는 숨을 돌리시며 말씀하였다: “야곱아, 많은 자녀를 가진 아버지인, 너는 내 말의 진실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다; “그런데 주(主)여, 제가 여섯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누가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 저의 신상에 대해 아십니까?” 그러자 주(主)가 대답하였다: “ 아버지와 아들은 모든 만물을 다 알고 있다는 것만 말해두겠다, 그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아버지로서 네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너는 이제 너—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뿐만 아니라, 너, 곧 너의 개별 혼—에 대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실체로서 받아들여야만 한다.”

142:2,4 (1597,4) 그리고 나서 예수는 말씀을 계속하였다: “너의 자녀들이 아주 어리고 철이 나지 않았을 때나 그들을 훈련시켜야 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화가 나 있다거나 무섭게 화를 내는 사람으로 기억할 수 도 있다. 그들의 미성숙함 때문에, 그들은 그 처벌을 관통하여 그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멀리 내다보는 그리고 올바르게 해주려는 애정을 식별할 수가 없다. 그러나 바로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남녀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여전히 아버지에 대하여 이러한 예전의 잘못된 생각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느냐? 어른 남녀로서 그들은 이제 그러한 모든 어렸을 적의 단련에서의 그들 아버지의 사랑을 식별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여러 세기(世紀)가 지나면서 이제는 인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진정한 본성과 사랑이 많으신 성격을 좀 더 잘 납득할 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 너희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하느님 보기를 고집 한다면, 영적으로 계몽된 이어진 세대에서 네가 무슨 이득을 얻겠느냐? 야곱아, 내가 말하겠는데, 너는 이 순간의 밝은

불빛 아래에서 이제까지 그 누구도 본적이 없는 아버지를 보아야만 한다. 그렇게 하여 그를 봄으로써 너는 그러한 자비로운 아버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기쁨을 향유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사랑 넘치는 의지가 이제부터의 네 일생을 지배하도록 추구하여야만 한다.”

142:2.5 (1598.1) 야곱이 대답하였다: “랍비여, 저는 믿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아버지의 왕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3 장. 하느님 개념

142:3.1 (1598.2) 12사도들은, 그들 중 대부분 하느님의 성격에 대한 이 토론을 들었는데, 그 날 밤 예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하였다. 이 질문들에 대한 주(主)의 대답을 현대 문체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42:3.2 (1598.3) 예수는 다음의 말을 하면서 12사도들을 가볍게 꾸짖었다: 너희는 야훼 개념의 성장과 관계되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알지 못하느냐? 또한 하느님에 대한 교리에 관하여 성서에서 가르치는 것을 모르느냐? 그리고

나서 주(主)는 사도들에게 유대 백성들의 발달 과정을 통한 신(神) 개념의 진화에 관해 가르치셨다. 그는 하느님 관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성장 위상들에 주의를 환기시키셨다:

142:3.3 (1598.4) 1. 야훼—시나이 씨족들의 하느님.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주님 하느님이라는 높은 차원으로 고양시켰던 원시적인 신(神)의 개념이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들의 신(神)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미숙한가 혹은 신성한 본성을 무슨 이름으로 상징하는가에 결코 관계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의 진실한 경배를 반드시 받아들이신다.

142:3.4 (1598.5) 2. 지고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이 개념은 멜기세덱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었고, 확대되고 확장된 이 신(神)의 관념은 나중에 믿었던 자들에 의해 살렘으로부터 멀리 전해졌다. 아브라함과 그의 형제는 태양신 경배의 체제 때문에 우르를 떠났으며, 그들은 멜기세덱의 가르침인 엘 에리온—지고자 하느님—의 신봉자가 되었다. 그들의 개념은 하느님의 개념을 합성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졌던 그들의 옛 관념들과 지고자의 교리가 함께 섞여진 것이었다.

142:3.5 (1598.6) 3. 엘 샤다이. 이러한 초기 시절 동안, 많은 유대인들은 나일 강 지역에 포로로 있는 동안 자기들이 배웠던 이집트 사람들의 하느님 개념인 엘 샤다이를 경배하였다. 멜기세덱 시대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들 세 가지의 하느님에 대한 개념들 모두가 합쳐져서 창조자 신(神), 이스라엘의 주(主) 하느님에 관한 교리를 형성하였다.

142:3.6 (1598.7) 4. 엘로힘. 아담의 시대부터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은 계속되어 왔다. 너희는 성서의 시작에서 “태초에 하느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주장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그 기록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세 하느님들의 삼위일체적인 개념이 우리 선조들의 종교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142:3.7 (1598.8) 5. 최극자(最極者) 야훼. 이사야의 시대 무렵에는 하느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들이 우주적 창조자라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는데, 그는 동시에 모든-힘을 지니고

모든-자비로움을 지닌 분이였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되고 확대되어 가는 하느님의 개념은 우리 조상들의 종교 속에 있는 신에 대한 이전의 모든 관념들을 실질적으로 대체하였다.

142:3.8 (1598.9) 6.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하느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로 알고 있다. 우리의 가르침은 신도들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종교를 제공한다. 그것이 하늘의 왕국 복음의 기쁜 소식이다. 아버지와 함께 아들과 영이 공존하며, 이들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본성과 사명활동에 대한 계시는 하느님의 상승하는 자녀의, 영원한 영적 발달의 끝없는 세대들을 통하여, 계속 확대되고 밝게 빛날 것이다. 언제나 그리고 모든 시대들 동안에, 어떤 인간의 진정한 경배—개별존재적인 영적 발달에 관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충성으로서, 내주(內住)하는 영에 의하여 인지된다.

142:3.9 (1599.1) 이전 세대들의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었던 하느님 개념의 성장을 예수가 다시 자세히 말씀하는 것을 듣고 사도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너무 어리둥절해서 질문도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들이 아무

말 없이 예수 앞에 앉아 있자, 주(主)는 말을 계속하였다:
“너희가 성서를 읽었었다면, 이러한 진리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사무엘서 에서 ‘주(主)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시고 가서 이스라엘과 유대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였다’라는 구절을 읽지 못했느냐? 그리고 그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사무엘의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야훼가 선과 악 모두를 창조했다고 실제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세의 기자(記者)가 하느님의 본성에 대한 유대 개념의 확대 이후에 일어났던 이들 사건들을 기록하였을 때, 그는 감히 악을 야훼의 탓으로 돌리지 못했으며; 그래서 그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배척하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계수 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너희는 성서에 있는 그러한 기록들이 하느님 본성의 개념이 어떻게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계속 성장하였는지를 명료하게 식별할 수 없겠느냐?

142:3,10 (1599,2) “너희는 다시 한 번 이들 확대되어진 신성(神性)의 개념과 완전하게 발을 맞추면서 신성한 법에 대한 납득과 성장한 것을 식별하여야만 할 것이다. 야훼에

대한 확대되어진 계시가 있기 이전 시대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왔을 때, 그들에게는 십계명(十誡命)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시나이산 앞에서 야영하고 있었던 때까지 그들의 법으로 쓰였다. 이 십계명이란:

142:3.11 (1599.3) "1. 너는 다른 하느님에게 절하지 마라. 주는 질투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142:3.12 (1599.4) "2. 너는 녹여 부은 하느님들을 만들지 마라.

142:3.13 (1599.5) "3. 너는 효소 없는 빵의 축제를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142:3.14 (1599.6) "4. 사람이거나 가축이거나 첫 번째로 태어난 남자는 모두 내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였다.

142:3.15 (1599.7) "5. 옛세 동안은 일할 수 있지만, 제 칠일에는 쉬어라.

142:3.16 (1599.8) "6. 첫 열매의 축제와 거두는 축제 지키는 것을 어기지 말라.

142:3.17 (1599.9) "7. 어떤 희생물의 피도, 효소 넣은 빵과 함께
드리지 마라.

142:3.18 (1599.10) "8. 유월절 희생물을 아침까지 두지 마라.

142:3.19 (1599.11) "9. 너의 땅에서의 첫 열매의 처음을 가져다 너의
하느님 주님의 집으로 가져오라.

142:3.20 (1599.12) "10.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142:3.21 (1599.13) "그러고 나서 시나이 산의 천둥과 번개 속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새로운 십계명을 주었는데, 그것은 너희
모두가 받아들이기에 더 가치 있는 말들로 신(神)에 대한
더 확대된 야훼 개념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성서에 이러한
계명들이 두 번 기록되었다는 것을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던 말이나?, 첫 번째 경우에는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이
안식일 준수를 위한 이유로 주어진 반면, 나중에 기록된,
우리 선조들이 요구했던 진보된 종교적 신념들이, 안식일
준수의 이유에서 창조의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에 주의해보지 않았느냐?

142:3.22 (1599.14) “그리고 나서 너희는 다시 한 번—이사야 시대의 좀 더 큰 영적 깨우침 속에서—이들 열 개의 부정적인 계명들이 하느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인 위대하고 긍정적인 사랑의 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사람의 모든 의무를 이루는 것으로서 선언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 최극의 사랑의 율법이다.”

142:3.23 (1600.1) 그가 말을 끝마치셨을 때, 아무도 질문하는 이가 없었다. 그들은 가서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제 4 장. 플라비우스와 그리스 문화

142:4.1 (1600.2) 그리스파 유대인 플라비우스는 할레나 세례를 모두 받지 않았던, 할례를 행할 의무가 없는 개종자였으며, 그림과 조각의 미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머물 때 기거하는 집은 아름다운 건물이었다. 이 집은 그가 세계 여행 중에 사방에서 수집한 매우 귀중한 보물들로 절묘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그는 예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려는 생각을 처음 했을 때, 소위 형상이라고 불리는 이 예술품들로 인하여 주(主)를

불쾌하게 할까봐 염려하였다. 그러나 예수가 집에 들어섰을 때 집안 곳곳에 놓인 소위 우상이라고 여겨지는 물건들을 가지고 그를 비난하는 대신에, 오히려 모든 수집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현시하였고, 플라비우스가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조각들을 예수께 보여주면서 각 방으로 안내하자, 각각의 물건들에 대해 긍정적인 많은 질문들을 하였기 때문에 플라비우스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42:4.2 (1600.3) 주(主)는 예술에 대한 자신의 호감 어린 태도에 집주인이 어리둥절해 하는 것을 보셨으며; 따라서 모든 수집품을 다 돌아본 후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창조한 인간의 예술적인 손길로 만들어진 물건들의 아름다움을 좋아한다고 해서 왜 네가 비난받아야 하겠느냐? 모세가 한 때 우상과 거짓 하느님에게 절하는 것을 금했다고 해서 왜 모든 사람들이 우아함과 미의 재창조에 얼굴을 찡그려야 하겠느냐? 플라비우스야, 내가 말하겠는데, 모세의 자손들은 그를 잘못 납득해 왔으며, 그가 하늘과 땅의 사물들의 모습이나 형상으로 할 것을 금지한 거짓된 하느님들을, 이제 사람들이 만들고 있다. 그러나 설사 모세가 그 시절의

우매한 마음들에게 그렇게 금지조항들을 가르쳤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전체 우주의 영 통치자라고 계시(啓示)되어진 오늘날에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플라비우스야, 내가 선언하겠는데 다가오는 왕국에서는 '이것을 섬기지 말라, 저것을 섬기지 말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것에서 멀리하고 저것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명령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것이고, 오히려 한가지의 가장 중요한 의무에만 관심을 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이 의무는 두 가지의 큰 특권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들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이신 무한한 창조자에 대한 진지한 경배와 자신의 동료 인간들에 대한 사랑하는 봉사이다. 만일 네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너희는 자신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실제로 알게 된다.

142:4.3 (1600.4) "나의 아버지가 제대로 납득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우상 숭배를 금하려는 모세의 시도가 정당화되었겠지만; 앞으로 오는 시대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의 일생 안에서 계시될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이 새로운 계시는 언제까지나 돌로 만든 우상이나 금과 은의 형상과 창조자 아버지를 혼동할 필요가 없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지능적 사람은 그러한 아름다움에서의 물질적인 깊은 이해와, 만물과 모든 존재들의 하느님, 곧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아버지를 경배하고 예배봉사 하는 것을 혼동하지 않으면서, 소중한 예술 작품들을 즐길 수가 있을 것이다.”

142:4.4 (1600.5) 플라비우스는 예수가 자기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믿었다. 다음 날 그는 요단을 지나 베다니로 가서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예수의 사도들이 아직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플라비우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예수를 위해 큰 만찬을 베풀었는데 60명의 친구들이 초대되었다. 이 손님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역시 다가오는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믿게 되었다.

제 5 장. 확신에 대한 강연

142:5.1 (1601.1) 이 유월절 주간에 예수가 성전에서 설교한 가장 위대한 설교들 중의 하나는 다마스쿠스 사람인 한 청중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 사람은 예수께 물었다: “그러나 랍비시여, 당신을 하느님이 보내셨다는 것과,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가까이 임했다고 선포하는 이 왕국에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142:5.2 (1601.2) “나의 메시지와 나의 제자들의 가르침에 관하여 너희는 그것들의 열매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너희에게 영에 관한 진리들을 전파한다면, 우리 메시지가 참되다는 것을 영이 너의 가슴 안에서 증거 할 것이다. 하늘의 아버지에 의한 승낙에 대한 너희의 확신과 왕국에 대해서 묻겠는데, 너희들 중의 훌륭하고 인정이 많은 아버지가, 그 아들이 가족 안에서의 자기 지위와 아버지의 가슴속에 있는 애정의 확실성에 대하여 근심과 불안에 있게 하겠느냐? 이 세상의 아버지인 너희는 너희 자녀들을, 네 인간 가슴속 안에 있는 불변의 애정에서의 그들 위치의 불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면서 기쁨을 얻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왕국에서의 그들의 위치에 관한 의심스런 불확실성 안에 자신의 자녀들을 놓아두지 않으신다. 만약 너희가 하느님을 너희의 아버지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정말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너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만약 너희가 자녀들이라면, 그러면 영원하고 신성한 아들과관계에 관한

모든 위치와 신분에서 너희는 보장받을 것이다. 만약 너희가 나의 말을 믿으면, 너희는 나를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 되며, 그렇게 아버지를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하늘의 시민 됨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신분을 얻은 것이다. 만약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면, 너희는 신성한 왕국에서 진보의 영원한 일생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142:5.3 (1601.3) “최극자 영은 너희가 진실로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너희의 영들에게 증거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너희는 하느님의 영으로 난 자들이다; 영으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모든 의심을 극복하는 힘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모든 불확실성과 너의 신앙까지라도 극복하는 승리다.

142:5.4 (1601.4) “선지자 이사야가 이러한 시대들에 대해서 말했다;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는, 정의(正義)의 결과는 언제까지나 화평이요 평안이요 확신이라.’ 그리고 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모든 이에게는, 그들이 아버지 왕국의 영원한 자비와 영속하는 일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증하겠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듣고 왕국의 이 복음을 믿는 너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너희는 일생을 영속토록
가질 것이다; 너희가 영으로 난 자들이라는, 모든 세상에
대한 증거는, 너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142:5.5 (1601.5) 경청하던 무리들은 여러 시간을 예수와 남아서
질문을 했고 위안을 주는 그의 대답들에 주의를 기울였다.
심지어는 사도들도 예수의 가르침으로 대담해져서 왕국의
복음을 좀 더 힘차고 확신 있게 설교할 수 있게 되었다.
예루살렘에서의 이 체험으로 이 12사도들은 큰 영감을
받았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수많은 군중들과의 처음
접촉이었으며, 그들은 많은 귀중한 교훈들을 얻었고
나중의 사명활동에서 큰 도움이 되었음이 증명되었다.

제 6 장. 니고데모와의 대화

142:6.1 (1601.6) 어느 날 저녁에 플라비우스의 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그는 부자였으며 유대
산헤드린의 나이가 지긋한 회원이었다. 그는 이미 이
갈릴리 사람의 가르침에 대해 많은 소문을 들었으므로,
어느 날 오후에 예수가 성전 정원에서 가르치실 때 그의
말을 들으러 갔었다. 그는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러 자주

가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하였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통치자들은 이미 예수께 적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그래서 산헤드린 회원 중 누구도 공공연히 예수와 정체성이 확인되기를 원하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니고데모는 예수와 이 날 밤에 사적(私的)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안드레와 함께 이미 약속해 두었었다. 대화가 시작되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플라비우스의 정원에 있었으며, 그들 모두는 강연이 진행되고 있던 집안으로 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142:6.2 (1602.1) 니고데모를 만남에 있어서 예수는 어떤 특별한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 그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떤 양보나 지나친 설득도 하지 않았다. 주(主)는 그의 은밀한 방문객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또한 아무런 빈정거림도 하지 않았다. 이 저명한 방문객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는 조용하였고 진지하였으며 품위가 있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의 공식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 주(主)의 가르침에 대한, 전적으로 개인적이며 진지한 관심으로 인하여 예수를 만나러 왔다.

142:6.3 (1602.2) 플라비우스에 의해 소개를 받은 후,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였다: “랍비시여, 우리는 당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줄 압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사람이 그러한 가르침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왕국에 관한 당신의 가르침을 더 알기 원합니다.”

142:6.4 (1602.3)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니고데모야,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겠는데, 사람이 위에서 태어나지 않고는 하느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태어나기 위해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142:6.5 (1602.4) 예수가 말씀하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내가 네게 분명히 말하겠는데, 영으로 태어난 사람 이외에는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육신으로부터 난 것은 육신이요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다. 네가 위에서 태어나야 하겠다는 내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마라. 바람이 불 때, 나뭇잎들이 내는 소리를 네가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보지

못한다.—그리고 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도 역시 그러하다. 육신의 눈으로 영의 현시활동은 볼 수 있지만 실재로 영을 식별할 수는 없는 것이다.”

142:6.6 (1602.5) 니고데모가 대답하였다: “그러나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말씀하였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아직도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한단 말이냐? 그래서 영의 실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오로지 물질적 세상의 현시활동작용만을 알아보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계시(啓示)해 줄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진리들을 말하고 있다면 네가 우리를 믿겠느냐?
니고데모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사람의 아들을 믿을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142:6.7 (1602.6) 그러자 니고데모가 말하였다: “어떻게 해야 왕국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저를 다시 만들어주는 영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네 안에 거하고 있다. 만일 네가 위로부터 온 이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너는 곧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서 영의 인도를 전심을 다

바쳐 선택함으로써, 너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기에 네가 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네가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과 하나님의 왕국에서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나면, 너는 매일의 생활에서 풍부한 영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142:6.8 (1602.7) 니고데모는 매우 진지하였다. 그는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으나 어리둥절한 채로 떠났다. 니고데모는 자아-발전, 자아-절제, 그리고 높은 경지의 도덕적 본질특성까지도 성취하였다. 그는 세련되고, 자기본위적이고, 이타적이었지만, 그러나 작은 어린아이가 현명하고 사랑이 많으신 이 세상의 아버지의 안내와 인도에 기꺼이 복종하듯이, 신성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어, 그렇게 함으로써 실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곧 영원한 왕국의 진보하는 상속자가 되는 방법을 알지는 못하였다.

142:6.9 (1603.1) 그러나 니고데모는 왕국을 간직하고 있기에 충분한, 신앙의 용기를 냈다. 그는 산헤드린의 자기 동료들이 심문 없이 예수께 죄를 씌우려 할 때, 약하게나마 반대하였다; 그는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

용감하게 자기 신앙을 인정하였고, 대부분의 제자들까지도 주(主)의 마지막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서 두려워 도망하였을 때에도 예수의 시신을 되찾았다.

제 7 장. 가족에 관한 교훈

142:7.1 (1603.2)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주간의 가르침과 개인적 사명활동으로 바쁘게 지낸 이후에 예수는 다음 수요일을 베다니에서 사도들과 쉬면서 보내셨다. 그 날 오후에 도마가 길고도 교훈적인 대답을 얻어낸 질문을 하였다. 도마가 말하였다: “주(主)여, 우리가 왕국의 대사들로 출발하던 날에 우리의 사적인 생활 방식에 관하여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는 군중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후에 왕국이 더욱 충만하게 다가오도록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노예를 소유해도 괜찮습니까? 당신을 믿는 사람들은 가난을 구하고 재물을 버려야 합니까? 자비 하나로서 설복되니까 우리가 더 이상 법과 공의를 안 가져도 됩니까?” 예수와 12사도들은 그 날 오후와 저녁 식사 후의 모든 밤 시간을 도마의 질문을 토의하면서 보냈다. 이 기록을 위하여 우리는 주(主)의 교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 한다:

142:7.2 (1603.3) 예수는 자기 자신은 육신을 입고 독특한 일생을 지상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과 12사도들인 그들은 사람의 아들의 이러한 증여 체험에 참가하도록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러한 동료로서 그들도 역시 증여 체험 전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나누어 가진다고 말씀하였다. 하느님의 진정한 가슴을 살펴보고 사람의 혼의 깊은 곳을 동시에 볼 수 있었던 이는,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오로지 사람의 아들 한 사람뿐이었음을 그가 넉지시 암시하였다.

142:7.3 (1603.4) 예수는, 하늘의 왕국은 진화적인 체험인데, 바로 이 세상에서 시작하여 파라다이스까지, 연속적인 일생을 통하여 진보해 나아가는 것임을 매우 명백하게 설명하였다. 그 밤중에 그는, 왕국 발전에서의 어느 미래 단계에서, 자신이 영적 힘과 신성한 영광으로 이 세상을 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였다.

142:7.4 (1603.5) 그 다음에 그는 "왕국 관념"이 하느님과 사람의 관계를 묘사하는 최선의 길은 아니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유대인들이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고, 요한이

다가오는 왕국이라는 용어로서 설교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유법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예수가 말씀하였다: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왕국의 복음이 가족 관계에서 표현되는 그러한 용어로 제시될 때—사람들이 종교를 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람의 형제신분 곧 하느님의 아들관계로 이해할 때—, 왕국의 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할 것이다.” 그런 다음 주(主)는 상당히 길게 하늘에서의 가족을 묘사하기 위하여 땅에서의 가족에 관해 강연을 하였으며 두 가지의 근본적 삶의 법칙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하였다: 아버지, 곧 가족의 우두머리에 대한 사랑이 첫 번째 계명이었고, 자녀간의 서로의 사랑, 너의 형제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형제와 같은 애정의 그러한 본질특성은, 사심-없고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사회봉사 안에서 스스로 그 자체를 어김없이 현시(顯示)하게 되리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142:7.5 (1603.6) 그 다음에는 가족생활의 근본적인 특징들과 그리고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이것들을 적용하는 데 대한 잊지 못할 토론이 뒤 따랐다. 예수는 참된 가족은 다음의 7 가지 사실에 바탕을 둔다고 말하였다:

142:7.6 (1604.1)

1. 실존의 사실. 본성에서의 관계와 필사자 유사성 현상들은 가족 안에서 떼어놓으려 해도 떼어낼 수가 없다: 자녀들은 부모의 어떤 특색을 이어받는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근원을 가진다; 개인성 실존은 부모의 활동에 달려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모든 본성에서 선천적인 것이며 모든 살아있는 실존에 퍼져있다.

142:7.7 (1604.2)

2. 안전과 즐거움. 진정한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서 큰 즐거움을 누린다. 많은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단순한 필요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즐거움을 충족시키는 것을 또한 즐긴다.

142:7.8 (1604.3)

3. 교육과 훈련. 현명한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아들딸의 교육과 알맞은 훈련을 위한 계획을 신중하게 세운다. 자녀들이 나중의 일생에서 좀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어렸을 때 준비시킨다.

142:7.9 (1604.4)

4. 단련과 억제. 앞을 내다보는 아버지들은 또한 어리고 미숙한 자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단련, 안내, 교정 그리고 때로는 억제를 규율로 정한다.

142:7.10 (1604.5) 5. 동행자관계와 충성. 애정이 넘치는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과 친근하고 사랑이 있는 교제를 유지한다. 그의 귀는 그들의 요구 사항에 항상 열려있다; 그는 언제나 그들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 갖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도와주려는 준비가 되어있다. 아버지는 자손의 복지 향상에 최극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

142:7.11 (1604.6) 6. 사랑과 자비. 연민이 가득한 아버지는 기꺼이 용서한다; 아버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하여 복수하려는 기억들을 간직하지 않는다. 아버지들은 재판관, 적대자 또는 채권자들과 같은 분들이 아니다. 실제 가족은 관용, 인내, 용서 위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142:7.12 (1604.7) 7. 미래를 위한 준비. 현세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 한다. 가족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어진다. 죽음은 단지 한 세대가 끝나고 또 다른 세대의 시작됨을 표시하는 것이다. 죽음은 개별존재의 일생을 그치게 하지만, 가족을 부득이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다.

142:7.13 (1604.8) 주(主)는 가족생활의 이들 모습을 지상의 자녀인 사람과 파라다이스 아버지인 하느님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 시간 토의하였다. 그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자녀와 아버지께 대한 이러한 전체적인 관계를 나는 완전함 안에서 알고 있다. 이는 영원한 미래에서 너희가 달성해야만 하는 자녀신분을 나는 이제 이미 달성하였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었으며, 그리하여 너희 모두가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길과, 너희가 영광스런 진보를 완결하기도 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게 되는 길이, 내 안에서 넓게 열려져 있다.”

142:7.14 (1604.9) 사도들은 이러한 놀라운 말들을 들었을 때, 예수가 세례 받으시던 날에 요한이 선언하였던 것을 상기하였으며, 그리고 그들은 또한 주(主)의 죽음과 부활 이후의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관련하여 이 체험을 생생하게 상기하였다.

142:7.15 (1604.10) 예수는 신성한 아들, 우주 아버지의 충만한 자신감을 지닌 분이였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그를 충만하게 이해하였다. 그는 이제 그의 지상 일생을 아버지가 충만하게 만족하실 만큼 살았으며 이

육체로서의 육신화는 그로 하여금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해주었다. 예수는 사람의 완전성이었다; 모든 진실한 신도들이 그의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성취하도록 운명되어진 그러한 완전성을 달성하였다. 예수는 하느님의 완전성을 사람에게 계시 하였고 자신 안에 하느님의 권역에서 완전케 된 자녀를 내 보였다.

142:7.16 (1605.1) 예수가 여러 시간 동안 강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였다: “그러나 주(主)여,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지상에서 심한 고통을 당하며,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항상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선생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142:7.17 (1605.2) 예수가 대답하였다: “도마야, 도마야,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영적인 귀로 듣는 힘을 갖게 되겠느냐? 너는 이 왕국이 영적 왕국이라는 것과 나의 아버지 또한 영적 존재라는 것을 식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영적 가족, 중심아버지가 무한하고 영원한 영이신, 그

가족에서의 영적 자녀로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느냐? 나의 가르침을 그렇게 문자 그대로
물질적인 관련사들에 적용하지 않고, 신성한 관계들을
가르치는 예로 이 세상의 가족을 사용하는 것을 내게
허용하지 못하겠느냐? 너의 마음속에서는 왕국의 영적
실체들을 이 세대의 물질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과 분리시킬 수는 없겠느냐? 나는 영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내가 단지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통상적이고 문자적 관계를 사용한다고 해서,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의미를 육신의 언어 안에서 번역하려고 고집
하느냐? 나의 자녀들아, 내가 간청하겠는데, 영적 왕국의
가르침을 노예제도, 빈곤, 주택 관련사, 땅과 같은 옹졸한
관련사들이나 인간의 평등과 정의(正義)라는 물질적인
문제에 적용시키기를 그만 두기 바란다. 이러한 세속적인
문제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거리이며,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나를
대표하도록 소명을 받았다. 너희는 영적 왕국의 대사 곧
영적 아버지의 특별한 대표들이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영적 왕국의 어른으로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항상 너희를 단지 아이들로서 말해야 한단 말이냐?
너희가 영적 이해력에서 성장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신으로서 우리의 교제의
마지막 끝까지라도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와 함께
견디겠다. 그리고 그 언제라도 나의 영은 너희들 앞에서 그
모든 세상으로 갈 것이다.”

제 8 장. 남부 유대 지방에서

142:8.1 (1605.3) 4월 말경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사이에서 예수에 대한 반대가 너무 뚜렷해져서 주(主)와
사도들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과 헤브론에서
일하러 남쪽으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5월 한 달 전부는
이들 도시에서 그리고 인근 마을의 사람들과 개인을
상대로 하는 일을 하면서 보냈다. 이 여행 중에는 아무런
대중 설교를 하지 않았고 단지 각 가정을 방문하였다.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돌보는 동안, 이
기간들 중의 얼마간을 예수와 아브너는 나지르인의
거류민단을 방문하면서 앵게디에서 지냈다. 세레자
요한이 이 곳 출신이었고 아브너는 이 집단의
우두머리였다. 많은 나지르인 형제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금욕적이며 괴벽스러운 이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가 금식과 몇몇 형태의 자아-부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하늘에서 내려 온 선생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다.

142:8.2 (1605.4)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몰랐다. 그들은 수많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주(主)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추측하였지만, 12사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42:8.3 (1605.5) 남부 유다 지방에서의 체류는 일한 결실을 맺고 휴식을 취한 시절이었다; 많은 혼들이 왕국으로 들어왔다. 6월 초까지는 예수에 대한 동요가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어 주(主)와 사도들은 신도들을 가르치고 위안을 주기 위하여 돌아갔다.

142:8.4 (1605.6) 비록 예수와 사도들이 예루살렘 안에서와 그 근처에서 그 달 전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기간 동안은 아무런 대중을 위한 가르침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당시에는 겿세마네라고 불리던 그늘진 공원의 정원에서 천막을 치고 대부분의 날들을 지냈다. 이 공원은 기드온 시냇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올리브 산의 서쪽 비탈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안식일인 주말에는

그들은 대개 베다니에서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과 함께 지냈다. 예수는 예루살렘 성안으로는 몇 번밖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많은 숫자의 관심 있는 문의자들이 그를 방문하려고 겿세마네로 나왔다. 어느 금요일 밤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만나러 왔었으나 주(主)의 천막 문 앞까지 왔다가 두려워하여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물론, 예수가 그들의 행동에 대해 모두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142:8.5 (1605.7) 유대의 통치자들이,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를 체포할 준비를 하였지만; 그가 아무런 대중 연설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가 먼저 번의 동요로 겁을 먹은 것으로 단정하여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그의 가르침을 이러한 사적인 차원에서 계속하도록 허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어떤 시몬이라는 산헤드린의 회원이 공개적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지지하고 나선 6월의 마지막 날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관련사들이 조용하게 진행되어 갔는데, 시몬은 유대의 통치자들 앞에서도 자신을 그렇게 공표하였다. 곧 예수에 대해 우려하는 새로운 동요가 일어났으며 그것은

너무 강하게 자라났기 때문에 주(主)는 사마리아와 데카폴리스에 있는 도시로 물러나 있기로 결정하였다.

제 143 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감

143:0.1 (1607.1) 서기 27년 6월말에, 유대 종교 통치자들이 점점 더 심하게 반대함으로 인하여 예수와 12사도들은 그들의 천막과 변변치 않은 소지품들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맡기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사마리아로 들어가기 위해 북쪽으로 가면서 그들은 안식일을 베텔에서 머물렀다. 이곳에서 그들은 고프나와 에브라임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설교하였다. 아리마대와 탐나에서 온 한 집단의 사람들이 예수께 자기들의 동네를 방문해 주기를 원하였다. 주(主)와 사도들은 이 지역에서 2주 이상이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가르쳤는데,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왕국의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 멀리 안티파트리스에서도 왔다.

143:0.2 (1607.2) 남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가롯 유다를 제외한 사도들은 사마리아인에게 가졌던 자신들의 편견을 많이 극복할 수 있었다. 유다로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7월의 마지막 주간에 예수와 그의 연관-동료들은 요단 가까이에 있는 그리스 도시들인 파사엘리스와 아켈라이스로 출발할 준비를 하였다.

제 1 장. 아켈라이스에서의 설교

143:1.1 (1607.3) 8월 전반부에 사도 일행은 그리스 도시들인 아켈라이스와 파사엘리스에 본부를 두었으며 거기에서 그들은 거의 이방인들만으로 이루어진 집단—그리스인, 로마인, 시리아인—을 상대로 해서는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체험을 가졌는데, 이 두 도시들에는 거의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로마 시민들과 접촉하면서, 사도들은 다가오는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에 새로운 어려움에 부딪쳤으며, 예수의 가르침들에 대한 새로운 반대에 봉착하게 되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사도들과 가졌던 회의들 중 하나에서, 12사도들이 자기들 각자의 수고를 주제로 체험담을 반복하여 말하자, 예수는 왕국의 복음에 대한 이러한 장애물들에 대해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143:1.2 (1607.4) 빌립의 질문이 그들의 어려움들 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다. 빌립이 말하였다: “주(主)여, 이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그러한 가르침들은 단지 약한 자들이나 노예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메시지를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종교가 강력하고 확고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성취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가르침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확언하기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약하고 수동적인 무저항 자들로 만들어서 곧 그들은 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主)여, 그들은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가르침이 하늘의 것이며 이상적이라고 기꺼이 시인하지만,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종교가 이 세상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당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주(主)여, 이제 우리는 이 이방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143:1.3 (1607.5) 도마, 나다니엘, 시몬 젤로떼, 마태로부터 왕국의 복음에 대한 비슷한 반대들에 대해 듣고 나신 후에, 예수가 12사도들에게 말씀하였다:

“나는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사랑하는 성격을 모든 인류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내 형제들아,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나는 단지 이 한 가지를 이행할 것이며, 나의 가르침이 이 시대 혹은 다른 세대의 유대인들이나 혹은 이방인들에 의해 오해받는 것에 꽤념치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신성한 사랑에도 혹독한 단련이 있다는 사실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 없는 자손들의 현명하지 못한 행위를 억제하도록 종종 강요한다. 아버지가 내리는 억제시키는 단련의 현명함과 사랑하는 동기를 자녀가 항상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겠는데, 파라다이스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그분의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의 힘으로 우주들의 우주를 지배한다. 모든 영적 실체들 중에서 사랑이 최고이다. 진리는 자유롭게 하는 계시이지만, 사랑은 최극의 관계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세상일들에서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실책을 하던지 간에, 앞으로 오는 세대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는 복음이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인간 진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을 존경을 담아서

인지하는 것과 사람의 형제신분을 사랑 넘치게
물질화구현하는 것이다.

143:1.5 (1608.2) “그러나 누가 너희에게 나의 복음이 단지
노예들과 약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했느냐? 내가
선택한 사도들인 너희가 허약한 자들처럼 보이느냐?
요한이 약한 자처럼 보였느냐? 너희는 내가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보았느냐? 이 세대에서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전파된 복음을 소유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세상의 종교는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지만, 나의
아버지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게다가,
회개하라는 소명(召命)과 자녀 됨을 받아들이는 것에 이
시대의 가난한 자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표하였다. 왕국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인과
로마인,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었고 젊은이나
노인, 남자나 여자에게나 똑같이 부여되었다.

143:1.6 (1608.3) “나의 아버지께서 사랑의 하느님이시며, 자비의
실천을 기뻐한다고 해서, 왕국의 봉사가 단조롭고 쉬운
 것이라는 관념을 받아들이지 말라. 파라다이스로의
상승은 언제나 최극 모험, 영원함을 어렵게 성취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왕국을 위한 봉사에는 너희와 너희 동료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용감한 남성다움이 요구될 것이다. 너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왕국 복음에 충성을 바침으로써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함께 싸우고 있는 너희 전우의 현존으로 용기가 강화되었을 때, 물리적 전쟁터의 전선에서 죽으려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너희의 필사 가슴속에 간직되어 있는 진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네 생명을 조용하게 그리고 온전히 혼자서 내려놓는 일은 더 높고, 더 심오한 형태의 인간적 용기와 헌신을 요구한다.

143:1.7 (1608.4) “오늘날, 너희가 무저항의 복음을 가르치고 무폭력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를 비난할지도 모르지만, 너희는 이 가르침들에게 자신들의 영웅적인 헌신을 하여 모든 인류를 놀라게 할 사람들, 곧 왕국 복음을 믿는 진지한 신도들의 긴 행렬의 첫 번째 자원자(自願者)들이다. 이 세상의 어떤 군대도, 모든 세상으로 나아가 기쁜 소식—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람들의 형제신분—을 전파하게 될 너희와 너희의 충성스러운 계승자들이 제시하는 것 보다 더 큰 용기와 용감함을 보여 준 적이 이제까지 없었다. 육신의 용기는 가장 낮은 형태의 용감성이다. 마음의 용감성이 더 높은

유형의 인간적 용기이지만, 최고의 그리고 최극의 것은 심오한 영적 실체의 깨우친 신념에 대한 타협하지 않는 충성이다. 그리고 그러한 용기가 하느님을-아는 사람의 영웅적 행위를 이룬다. 그리고 너희 모두는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진정으로 사람의 아들의 개인적 연관-동료들이다.”

143:1.8 (1608.5) 이것이 그 상황에서 예수가 말씀하였던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의 연설의 처음 부분이었으며, 그는 계속해서 장시간을 이러한 발표에 대한 설명과 예를 들어 주었다. 이것은 예수가 12사도들에게 말씀하였던 것 중에서 가장 열렬한 강연들 중의 하나였다. 주(主)는 사도들에게 명백하게 강한 감정을 가지고 말씀한 적이 거의 없었으나, 이것은 그가 깊은 감정과 진지함을 현시하면서 말씀하였던 얼마 되지 않은 경우들 중의 하나였다.

143:1.9 (1609.1) 사도들의 대중 연설과 개인적 사명활동에서의 결과는 즉시 나타났는데; 바로 그 날부터 그들의 메시지는 용기로 지배되는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12사도들은 왕국의 새로운 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적극성의 정신을 계속해서 습득하였다. 이 날 이후로 그들은 주(主)의 다방면에 걸친 가르침의 소극적 덕목들과 수동적 명령으로의 설교하는 일에 그다지 많이 얹매이지는 않았다.

제 2 장. 자아-정복에 대한 교훈

^{143:2.1 (1609.2)} 주(主)는 인간 자아-통제의 완전한 표본이었다. 그는 자기가 욕을 먹을 때에도 욕하지 않았다; 자신이 고통을 당할 때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자에게 아무 위협의 말도 하지 않았다; 적들이 자기를 고발하면 단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정의(正義)로우신 심판에 자신을 맡겼다.

^{143:2.2 (1609.3)} 어느 날 밤 회의에서 안드레가 예수께 물었다: “주(主)여, 요한이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자아-부정을 실천해야 합니까? 아니면 선생님의 가르침처럼 자아-통제를 행하도록 분투해야 합니까? 선생님의 가르침과 요한의 가르침은 어떤 면에서 다른 것입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요한은 진실로 자기 선조들의 빛과 법에 의거하여 정의로움의 길을 너희에게 가르쳤으며, 그것은 자아-검증과 자아-부정의 종교였다. 그러나 나는 자아-잊어버림과 자아-통제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 주신 대로 너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143:2.3 (1609.4)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자신의
자아를 다스리는 자는 한 도시를 점령하는 자보다 더욱
위대하다. 자아-정복은 사람의 도덕적 본성의 척도이며
그의 영적 발전의 표식이다. 옛 규율 안에서는 너희가
금식하고 기도하였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창조체로서, 너희는 믿고 그리고 기쁨을 향유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 아버지의 왕국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창조체가 되어 가야 한다; 옛 것은 지나쳐 멀리 보내야
한다; 보라,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너희의
사랑으로써, 너희는 속박으로부터 해방으로,
죽음으로부터 영속하는 일생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확신시켜야 한다.

143:2.4 (1609.5) “옛 길에 따라서, 너희는 삶의 법규들에 의해
억제되고, 그것에 복종하고, 그리고 순응하는 길을
추구하고 있다; 새 길에 따라서, 너희는 먼저 진리의 영에
의해 변환되고 그에 따라서 너희의 마음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새롭게 함으로서 너희 안에 있는 혼이 강한 힘을 얻게 되며, 그렇게 너희는 인자하고 적절하고 그리고 완전한 하느님의 뜻을 확실히 기쁘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자질로서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신성한 본성의 공유자가 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지극히 위대하고 값진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너희의 개인적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처럼 너희의 신앙에 의해, 영의 변환에 의해 너희는 실체 안에서 하느님의 성전이 되며, 그의 영은 실재로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는 더 이상 육신의 노예가 아니고 자유롭고 해방된 영의 자녀들이다. 자아-속박의 두려움과 자아-부정의 노예가 되는 옛날의 법 대신에, 새로운 영의 법이 자아-정복의 해방을 너희에게 자질로서 부여하는 것이다.

143:2.5 (1609.6) "너희가 악을 행했을 때, 실체 안에서 너희가 너희 자신의 자연본성적 성향들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행동들을 악한 존재의 영향으로 돌리려고 번번히 생각해 왔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래 전에 너희에게, 인간의 가슴은 무엇보다도 기만적이고 때로는 지독하게 사악하다고까지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얼마나 쉽게 자아-기만에

빠져들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서 얼마나 쉽게
어리석은 두려움, 갖가지 욕망, 노예가 되어가는 쾌락,
악의, 시기, 그리고 심지어 복수하려는 증오에 이르기까지
빠져드는지 모르겠다!

143:2,6 (1610.1) "구원은 영(靈)의 다시 살아남으로 인한 것이며,
육신에서의 자아-정의로운 행위의 덕분이 아니다. 너희는,
육신에서의 두려움이나 자아-부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신앙에 의해서 옳다고 인정되며 인애(仁愛)에 의해서
동료관계로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태어난 아버지의 자녀들은 언제나 그리고 항상 자아와
육신의 욕망에 대한 모든 것들의 주인들 이다. 너희가
신앙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느님과 실제
평화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하늘의 평화의 길을 따르는
모든 이들은 영원한 하느님의 항상-진보하는 자녀들의
영원한 봉사로 신성화 되도록 운명되어진다. 따라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함을 구하면서 모든 마음과
육체의 악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씻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드높아지는 특권이다.

143:2.7 (1610.2) “너희가 자녀 관계를 획득하는 것은 신앙에 기반을 두며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의 기쁨은 신성한 말씀을 신뢰하는데서 나오며 따라서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의 실체를 의심하도록 이끌리지 않아야 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참되고 진정한 회개를 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선함이다. 자아의 정복에 대한 너희의 비결은, 사랑으로 늘 일하는, 내주하고 있는 영을 믿는 너희 신앙과 결속되어 있다.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신앙도 너희들 스스로 안에 가진 것이 아니며; 그것도 역시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만약 너희가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의 자녀들이라면, 너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노예가 아니고 오히려 너희 자신에 대하여 승리한 주인들, 하느님의 해방된 자녀들이다.

143:2.8 (1610.3) “나의 자녀들아, 만약 너희가 영으로 태어난다면, 너희는 자아-부정의 일생에서의 자아-의식하는 속박으로부터 그리고 육신의 욕망을 염려로서 살피는 일로부터 언제까지나 구원을 받으며, 즐거운 영적 왕국으로 옮겨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영의 열매들은 즐겁고 고상한

자아-통제의 가장 높은 유형의 핵심, 심지어는 이 세상의
필사 달성의 최고 높이—진정한 자아-정복—이다.”

제 3 장. 기분전환과 이완-휴식

^{143:3.1 (1610.4)} 이 무렵에, 신경과민과 감정적 강박감이 사도들과
그들의 직속 연관-동료 제자들 사이에서 크게 일었다.
그들은 함께 살아가며 일하는 것에 거의 적응할 수 없었다.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잘 지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체험하고 있었다. 이방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과의 접촉이란 이들 유대인들에게는 큰
시련이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 이외에도, 최근의 예수의
발언이 그들의 어지러운 마음을 증강시켰었다. 안드레는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였으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랐으므로, 자신의 문제들과 난처한 상황들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주(主)에게로 갔다. 예수가 사도들의
우두머리가 자신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말하는 것을
들으신 후에 말씀하였다: “안드레야, 그들이 그러한 분규에
그렇게 관여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과 그 일들을 논의할 수 없다.
나는 네가 요청한 일을 할 수가 없다—나는 이러한 개인적
공동체의 문제들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3일간의 휴식과 이완-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네 형제들에게 가서 모두 나와 함께 사르타바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루 이틀 쉬도록 하자고 전해라.

143:3.2 (1610.5) “이제 가서 11명의 형제들 각각에게 사적(私的)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라: ‘주(主)가 휴식과 이완을 잠시 하려는데 우리와 같이 떠나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가 최근에 많은 영적 시달림과 마음의 긴장을 체험하였으므로, 나는 아무도 이 휴가 동안에는 우리의 시련과 곤경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를 제안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너의 협조를, 내가 기대해도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네 형제들 각자에게 다가가라.” 안드레는 주(主)가 지시한 대로 행하였다.

143:3.3 (1611.1) 이것은 각자의 체험에 있어서 굉장한 사건이었다; 그들은 산으로 올라갔던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하였다. 전체 여행 기간 동안 자신들의 문젯거리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 산 정상에 올라가자 예수는 그들을 자신의 주위에 앉히고 말씀하였다: “내 형제들아, 너희 모두는 휴식의 소중함과 이완-휴식의 효능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법은 잠시 동안 그것들을 내버려두는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만 한다. 그런 다음, 휴식이나 경배의 시간을 가진 후에 새롭게 돌아가면, 너희는 더욱 단호해진 가슴은 말할 것도 없고, 좀 더 맑은 머리와 더욱 안정된 숨씨로 너희의 문제들을 쳐부술 수 있게 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너희의 마음과 몸을 쉬게 하는 동안에 너희의 문제는 크기와 비율에서 여러 번 쪼그라들었다는 발견하게 된다.”

143:3.4 (1611.2) 다음 날 예수는 12사도들 각자에게 토의 제목을 하나씩 주었다. 그들의 종교적 일과 관계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회상(回想)과 토의(討議)를 하며 하루 온 종일을 보냈다. 그들은 예수가 점심 식사 때 식사기도—입 밖으로 내어서—까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가 그러한 형식을 무시하는 것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143:3.5 (1611.3) 그들이 산으로 올라갔을 때, 안드레의 머리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었다. 요한은 지나칠 정도로 가슴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마태는 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묶고 있었으므로 기금 조달에 매우
쪼들리고 있었다. 베드로는 과로하였고 최근에는 보통
때보다 더 성질이 심하였다. 유다는 주기적인 신경과민과
이기심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시몬은 자신의 애국심을
사람의 형제신분에서의 사랑으로 절충하려는 노력으로
특별히 격해 있었다. 빌립은 일이 진행되어 나가는 방식에
대해 점점 더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나다니엘은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된 이래로 유머가 줄어들었으며,
도마는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단지 쌍둥이 형제만이
정상적이었고 평온하였다. 그들 모두는 어떻게 요한의
제자들과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난처해하고 있었다.

^{143:3.6 (1611.4)} 셋째 날에 그들이 산을 내려와 야영지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은, 많은 힘든
문제들이 과장된 두려움의 산물이고 증강된 우려의
결과이며, 인간들의 많은 난처한 일들은 실체 안에서
실존하지 않는 것이라는 중대한 발견을 하였다. 그들은
모든 그러한 분류들은 내버려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으며; 그것들에서 떠나감으로 인해

그들은 그러한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도록 내버려두었던 것이다.

143:3.7 (1611.5) 이 휴가로부터 돌아온 것이 이들 요한의 추종자들과의 그들의 관계를 많이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2사도들 중 대부분은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의무에서 떠나 3일간의 휴가를 가진 결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상태가 바뀐 것을 보았고, 그들이 신경과민에서 해방되었음을 알게 되자 실제로 기뻐하였다. 인간 접촉에 있어서의 단조로움은 분규들을 크게 불리고 어려움들을 확대시키는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143:3.8 (1611.6) 아켈라이스와 파사엘리스라는 두 그리스 도시에서는 그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지는 않았지만, 12사도들은 오직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는 처음으로 일하면서 귀중한 체험을 쌓았다. 그 달 중순경 어느 월요일 아침에 예수가 안드레에게 말씀하였다: “이제 다 같이 사마리아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야곱의 우물 근처의 수가라는 도시를 향해 즉시 떠났다.

제 4 장.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143:4.1 (1612.1) 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대 지방의 유대인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갈릴리의 유대인들도 역시
사마리아인들과 반목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악감정은 이렇게 연유되었다: 기원 전
700년경에 아시리아의 왕인 사르곤이 중부(中部)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폭동을 진압하면서,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 25,000명 이상의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의 자리를 거의 비슷한 숫자의 쿳인, 세파르브인,
하마트인 후손들로 채웠다. 더 나아가 그 뒤에는,
아쉬바니팔이 다른 거류민단을 보내어 사마리아에 살게
하였다.

143:4.2 (1612.2)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의 종교적
적대감은,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생활에서 귀환하는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때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의
재건을 막으려고 하였다. 나중에 그들은 알렉산더의
군대에 호의적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유대인들을 화나게
하였다. 그들의 우호에 보답하기 위하여 알렉산더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게리짐 산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였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의 성전
봉사 순서의 많은 부분을 본 따서 야훼와 자기들 종족의

하느님들에게 경배를 드렸고 많은 희생물을 바쳤다. 적어도 그들은, 요한 히르카누스가 게리짐 산에 있는 그들의 성전을 파괴하였던, 마카비 시대까지도 이 경배를 계속하였다. 사도 빌립은 예수의 죽음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을 위해 일하면서 이 옛 사마리아 성전 터에서 많은 모임을 가졌다.

143:4.3 (1612.3)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반목은 매우 오래되고 역사적인 것이었다; 알렉산더 이후로 그들은 점점 더 서로를 상대하지 않았다. 12사도들은 그리스에서 또는 다른 이방인 도시들인 데카폴리스나 시리아에서 설교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으나, 주(主)가 “사마리아로 가자”고 말씀하였을 때, 그것은 주(主)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엄중하게 시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 년 넘게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그들은 그의 가르침에 대한 자기들의 신앙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까지도 초월하는 개인적 충성심의 형태를 이미 발전시켜 왔었다.

제 5 장. 시카의 여인

143:5.1 (1612.4) 주(主)와 12사도들이 야곱의 우물가에 도달했을 때, 여행에서 지친 예수는, 시카로부터 빌립이 음식물과

천막을 가져오기 위하여 다른 사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간 동안, 그 우물가에 남아 계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 근처에서 당분간 머물러 있기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와 함께 남아 있으려고 하였지만, 다음과 같이 말씀하면서 그들도 다른 형제들과 함께 가도록 권하였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이 사마리아인들은 친절할 것이며, 오직 우리 형제인 유대인들만이 우리를 해치기를 꾀한다." 예수는 사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우물가에 앉아 있었던 때는, 여름 날 저녁 거의 6시 경이었다.

143:5.2 (1612.5) 야곱의 우물은 시카의 우물들보다 광물질이 적었으므로 식수(食水)로 매우 소중하게 여겨졌다. 예수는 목이 말랐으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시카의 한 여인이 그녀의 물그릇을 가지고 다가와서 물을 길으려고 했을 때, 예수가 그녀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였다. 그 사마리아의 여인은 그의 모습과 복장을 보고 예수가 유대인임을 알았으며 그의 억양에서 그가 갈릴리 유대인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녀의 이름은 날다였고, 미모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유대인이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말을 하며 물을 청하는 것에 매우

놀랐는데, 그 당시에는 자아-존중의 남자가 공개적으로 여인에게 말을 거는 일은, 더구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온당하지 않았던 때였다. 따라서 날다는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가 가진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만일 네가 단지 이해할 수 있다면, 너는 나에게 생명수(生水) 한 모금을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자 날다가 말했다: "그러나 선생님, 당신은 물을 길은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명수를 얻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자신과 자기 아들과 그의 가축을 다 먹게 하였던, 우리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하십니까?"

143:5.3 (1613.1) 예수가 대답하였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살아있는 영의 물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생명수는 그의 속에서 영원한 생명(永生)에 이르기까지 솟아오르는 원기 회복의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자 날다가 말했다: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 않고 또 이제부터는 물을 길러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게다가, 사마리아 여자가

그런 훌륭한 유대인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143:5.4 (1613.2) 날다는 자기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의 거리낌이 없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주(主)의 얼굴에서 고결하고 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친절함을 통상적인 치근덕거림으로 오해하였으며, 그의 말투를 자기에게 접근하려는 것으로 잘못 해석했다. 그리고 그녀는 도덕적으로 방종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유혹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예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위엄 있는 음성으로, “여인아,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고 말씀하였다. 이 명령이 날다의 정신을 차리게 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주(主)의 친절을 잘못 판단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말투를 오해하였다는 것을 알아 차렸다. 그녀는 겁을 먹었다; 자신이 비범한 사람의 현존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으며 적당한 대답을 마음속에서 찾지 못하면서 당황하여 말하였다: “저는 남편이 없으므로 남편을 불러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말씀하였다: “네가 진실을 말하였구나. 네가 한 때는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같이 사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늘 너에게 주는 생명수를 구하도록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143:5,5 (1613,3) 이 때 날다는 침착성을 되찾았고 자신의 선한 본성이 깨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으로 비도덕적인 여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에 의해 냉혹하고 부당하게 버림을 받았으며 몹시 비참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한 그리스 남자의 아내로 살 것을 동의했었다. 날다는 이제 생각 없이 예수께 이야기한 것이 대단히 부끄러웠고 후회 막심하여 주(主)에게 여쭙었다: “나의 주님, 당신에게 한 저의 말투에 대해 회개합니다. 당신은 제가 보기에는 성스러운 사람이거나 어쩌면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그리고 그 이래로 행하였던 것—신학과 철학적 토론으로 바꿈으로써 개인적 구원의 문제를 비켜 가는—을 행하면서,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직접적이고 개인적 도움을 주(主)로부터 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화를 그녀 자신의 필요성에서 신학적 논쟁으로 재빨리 돌렸다. 게리짐 산을 가리키면서 그녀는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드려야만

한다고 하니, 과연 어느 곳이 하느님을 경배 드리는 올바른 장소입니까?”

143:5,6 (1613.4) 예수는 이 여인의 혼이 그 조물주와 직접 그리고 접촉함으로 찾는 것을 피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알아차리셨지만, 그녀의 혼 속에는 또한 좀 더 나은 일생의 길을 원하고 있음도 보셨다. 결국, 날다의 가슴속에 생명수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녀에게 참을성을 가지고 대하면서 말씀하였다: “여인아, 내가 말하겠는데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곧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많은 이교도 하느님들의 종교와 이방인의 철학들이 혼합된,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한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경배를 드리는 대상을 알고 있다; 그들은 하나의 하느님 곧 야훼만을 경배함으로써 모든 혼란을 제거시켰다. 그러나 아버지께 참으로 경배하는 자들은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경배할 때가 곧 올 것이라고—이미 지금 와 있다—내가 한 말을 믿어야만 하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경배자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영이시며, 그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경배해야만 한다. 너희의 구원은 다른 자들이 어떻게 혹은 어디에서 경배를 드리는지를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수를 너 자신의 가슴에 받음으로써 온다.”

143:5.7 (1614.1) 그러나 날다는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개인적 일생과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혼의 지위에 대한 당황스런 논제를 피하기 위해 또 한 번의 시도를 하였다. 다시 한 번 그녀는 일반적인 종교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요한이 가르치기를 개종시키는 분이 와서 자신을 해방자라 칭할 것이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그러자 예수가 날다의 말을 중단시키며 깜짝 놀라게 하는 확신으로 말씀하기를,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이니라.”

143:5.8 (1614.2) 이것은 자신의 신성한 본성과 이 땅위에서 예수가 이미 이룩한 아들관계에 관한, 최초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공연한 발표이었다; 그것은 한 여인에게,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도 그 당시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성격의 여인에게 행해졌다, 그러나 신성한 눈이 바라본 그 여인은 그녀 자신의 열망으로 죄를

범한 것에 비하여 더욱 많이 죄에 저항해 오고 있었으며
그리고 지금은 구원을 열망하는 혼을 가진 인간 존재이며,
그것을 진심으로 온 전심을 다해서 원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143:5.9 (1614.3) 날다가 좀 더 나은 일과 좀 더 고상한 삶의 길에
대한 자신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갈망을 막 표현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가슴속의 실제 열망을 이제 말할 준비가
되자마자, 12사도들이 시카로부터 돌아왔고, 예수가 이
여인과—이 사마리아 여인과 단 둘이서—친근하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놀람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은
재빨리 자기들의 물건들을 내려놓고는 한 옆에 서서,
아무도 감히 예수를 비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가
날다에게 말씀하였다: “여인아, 너의 길을 가거라;
하느님께서 너를 용서하였다. 이제부터는 새 일생을 살
것이다. 네가 생명수를 받아들여 왔으니 새로운 기쁨이 네
혼속에 용솟음 칠 것이며 너는 지고자의 딸이 될 것이다.”
그 여인은 사도들이 못마땅해 하는 것을 알아채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도시로 도망쳤다.

143:5.10 (1614.4) 그녀는 도시에 들어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외쳤다: “야곱의 우물로 빨리 가시오. 거기에서 내가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개종시키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해가지기 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말을 들으러 야곱의 우물가에 모였다. 주(主)는 그들에게 생명수, 곧 내주(內住)하는 영의 선물에 대해 좀 더 말씀하였다.

143:5.11 (1614.5) 사도들은 예수가 여인들과, 그것도 의심스러운 성격의 여인들, 심지어는 부도덕하기까지 한 여인들과 기꺼이 말씀하는 것에 대한 충격에서 결코 헤어날 수 없었다. 예수가 사도들에게 여인들, 소위 부도덕한 여인들까지도 하느님을 자기들의 아버지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딸들이 되고, 영속하는 일생을 향한 후보자가 되어가는 혼을 가진다는 점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심지어는 19세기 이후까지도, 많은 이들이 주(主)의 가르침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와 똑같은 마음 내키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심지어 그리스도교까지도, 그의 일생에 대한 진리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사망 사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세워졌다. 세상은 그의 비극적이고

애통한 죽음보다는 그의 행복하고도 하느님을-
게시하였던 일생에 좀 더 관심을 두었어야 했다.

143:5.12 (1614.6) 날다가 다음 날 이 모든 이야기를 사도 요한에게
말 하였지만, 그는 다른 사도들에게는 다 말해 주지
않았으며, 예수가 12사도들에게 그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하지 않았다.

143:5.13 (1615.1) 날다는 예수가 자기에게 “자신이 전에 했던 모든
것”을 말씀하였다고 요한에게 말하였다. 요한은 날다와의
이 만남에 대해 예수께 물어보려고 여러 번 원했으나, 결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예수는 그녀에게 그녀 자신에 대한
단 한 가지 사실만을 말씀하였었지만,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녀를 대하는 그의 태도로 말미암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잠시 동안 자신의 변화무쌍한 일생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는데, 그녀는 자신의 과거의 이러한
자아-게시를 주(主)의 표정과 말씀에 연관시켰다. 예수는
결코 그녀에게 남편이 다섯이었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버린 이래로 네 명의 다른 남자와
동거했었는데 예수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이 그녀의 모든 과거와 함께, 너무나

생생하게 그녀의 마음속에서 나타났기에, 그녀는 뒤이어서 요한에게 예수가 그녀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그녀에서 실제로 말했다고 반복했다.

제 6 장. 사마리아의 부흥

143:6.1 (1615.2) 날다가 사람의 무리들을 예수를 만나 보라고 시카로부터 불러들이던 저녁에, 12사도들은 음식을 가지고 막 돌아 왔으며, 하루 종일 굶어 시장했었음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대신에 자기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예수께 청했다. 그러나 예수는 곧 밤이 오리라는 것을 아셨으며;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기 전에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로 한 결심을 고집하였다.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좀 드시라고 안드레가 그에게 설득하려 하자, 예수가 말씀하였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사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 여인이 마실 것 뿐만 아니라 음식도 드렸는가?" 예수가 그들 사이에서 하는 말을 들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전에 그들을 돌아보며 12사도들에게 말씀하였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추수하기 전까지 이러 저러한 시간이

남았다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사마리아 도시로부터 우리의 말을 듣기 위해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겠는데 밭이 이미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수확하는 자는 삯을 받아들이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이 열매를 거둬드리는데; 결국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쁨을 향유함이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하는 말이 옳다.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곳으로 거두러 보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세례자 요한의 설교에 관련시켜 말씀하였다.

^{143:6.2 (1615.3)} 예수와 사도들은 시카로 들어갔으며 게리짐 산에 야영지를 세우기 전까지 이틀 동안 설교하였다. 수가의 많은 거주민들이 복음을 믿었으며 세례를 받기 원했으나 예수의 사도들은 아직 세례를 주지 않았다.

^{143:6.3 (1615.4)} 게리짐 산에서 야영한 첫 날 밤에, 사도들은 예수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를 꾸중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 일에 대하여 어떤 언급도 없었으며, 그 대신에 "하느님의

왕국에서 중심이 되는 실체들”이라는, 기억에 남을 만한 강연을 하였다. 어떤 종교에서든지, 가치들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고 그리고 사실들이 그 신학 안에서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락하기가 매우 쉽다. 십자가의 사실이 나중의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게 되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일생과 가르침으로부터 유래되어질 종교의 중심적 진리는 아니다.

143:6.4 (1615.5) 게리짐 산에서의 예수의 가르침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그는 자기(예수)가 형제-친구이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을 아버지-친구로 여겨 주기를 원하였다. 그는, 이 신성한 관계들의 관찰에서 진리가 가장 위대한 선언인 것과 똑같이, 사랑이 세상에서—우주에서—가장 위대한 관계라는 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강조하였다.

143:6.5 (1616.1) 예수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충만하게 사마리아인들에게 선포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가 안전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왕국 복음을 설교하러 사마리아의 중심부를 다시 방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43:6.6 (1616.2) 예수와 12사도들은 8월말까지 게리짐 산에서 야영하였다. 그들은 낮에는 도시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왕국의 기쁜 소식—하느님의 아버지신분—을 설교하였고 밤에는 야영지에서 지냈다. 예수와 12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도시들에서 했던 과업은, 많은 혼들을 왕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열매를 맺었으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뒤이어 예루살렘에서 신도들에 대한 비참한 처형이 일어나 사도들이 나중에 땅 끝까지 흩어지게 된 후에, 이 지역에서의 빌립의 놀라운 과업을 위한 길이 충분히 준비되도록 하였다.

제 7 장. 기도와 경배에 대한 가르침들

143:7.1 (1616.3) 게리짐 산에서의 저녁 회의들에서 예수는 많은 위대한 진리들을 가르치셨는데 특히 다음의 것들을 강조하였다:

143:7.2 (1616.4) 참된 종교는 창조자와의 자아-의식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 혼(魂)의 행동이다; 조직된 종교는 개별적 종교가들의 경배를 사람들이 사회화시키려는 시도이다.

143:7.3 (1616.5) 경배—영적인 것에 대한 깊은 사색—is 봉사, 즉 물질적 실체와의 접촉과 교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일은 오락과 교대되어야만 한다; 종교는 유머로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심오한 철학은 운율이 있는 시로 압박감이 해소되어야 한다. 삶의 팽팽한 잡아당김—개인성의 시간 긴장—is 경배에서의 평온 가득함으로 이완되어야 한다. 우주 안에서 개인성 고립의 두려움으로부터 생기는 불안의 느낌은, 아버지에 대한 신앙적인 깊은 사색으로 그리고 최극자에 대해 시도되는 실체화 실현으로 해독(解毒)되어야 할 것이다.

143:7.4 (1616.6) 기도는 사람에게 사고(思考)를 더욱 적게, 그러나 실체화하는 것을 더욱 많이 만들도록 고안되어 있다; 기도는 지식을 증가시키려고 고안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통찰력을 확대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143:7.5 (1616.7) 경배는 앞으로의 보다 나은 일생을 예상하고 그래서 이들 새로운 영적 의의(意義)를 현재의 일생에 반영하려고 의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영적으로 지탱시키는 것이지만, 경배는 신성하게 창조적인 것이다.

143:7.6 (1616.8) 경배는 많은 이에게 봉사하는 영감을 얻기 위하여 한분을 쳐다보는 것에 관한 기법이다. 경배는, 혼이 물질적 우주로부터 초연함이 확장된 범위와 동시에 혼이 모든 창조의 영적 실체들과 안전하게 결속되어 있는 범위를 재는 척도이다.

143:7.7 (1616.9) 기도는 자아를-상기하는 것이다—숭고한 사고이다; 경배는 자아를-망각하는 것이다—초(超)사고이다. 경배는 노력을 쏟지않는 집중이며, 참되고 이상적인 혼 휴식이며, 일종의 평안이 넘치는 영적 분발이다.

143:7.8 (1616.10) 경배는 한 부분이 자신을 전체와; 유한자가 무한자와; 자녀가 아버지와; 시간이 시각을 치는 단계의 활동 안에서 영원과, 정체성을 확인을 이루어가는 활동이다. 경배는 신성한 아버지와의 개인적 교제행위, 인간의 혼-영이 신선하고 창조적이며, 형제우애에서의 그리고 열렬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143:7.9 (1616.11) 야영지에 있던 사도들은 그의 가르침들의 단지 몇 가지만을 파악했을 뿐이었지만, 다른 세계들은 파악하였으며, 이 땅의 다른 세대들도 파악하게 될 것이다.

제 144 편 길보아와 데카폴리스에서

144:0.1 (1617.1) 9월과 10월은 길보아산 비탈위의 외떨어진 천막에서 물러나 지냈다. 예수는 9월 한 달 동안 이곳에서 자신의 사도들과 함께 홀로 지내면서 그들에게 왕국의 진리들에 관한 가르침과 지시를 주었다.

144:0.2 (1617.2) 예수와 사도들이 이 때 사마리아와 데카폴리스의 경계인 이 지역으로 물러나 지낸 데는 몇 가지의 이유들이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통치자들의 반목이 매우 커졌으며;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과 예수가 어떤 면에서든지 서로 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하며 여전히 요한을 감옥에 잡아둔 채, 그를 석방하는 것과 처형하는 것 두 가지 모두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유대 또는 갈릴리 지방 어느 곳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 외에도 세 번째 이유는: 요한의 제자들의 영도자들과 예수의 사도들 간에 싹튼 긴장감이 서서히 증강하고 있었는데, 신도의 수가 늘어갈 수록 그 감정이 점점 더 격화되었다.

144:0.3 (1617.3) 예수는, 가르침과 설교에 있어서는 이제 예비적인 일들이 거의 끝났다는 사실, 다음 단계는 그의 지상(地上)

일생에서의 충만하고 그리고 마지막 수고를 시작하는 것에 관계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그는 이 일의 시작이 어떤 면에서도 세례자 요한에게 시험이 되거나 곤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따라서 예수는 한동안 은거하여 지내면서 요한이 처형되거나 혹은 석방되어 연합으로 그들의 사명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사도들을 재훈련시키며 데카폴리스의 도시들에서 조용히 지내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장. 길보아에서의 야영생활

144:1.1 (1617.4)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12 사도들은 예수께 더욱 헌신하게 되었으며, 왕국의 업무에 점점 더 열중하였다. 그들의 헌신은 대부분이 개인적 충성심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의 다양한 가르침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으며; 예수의 본성이나 혹은 그가 이 세상에 증여된 의의(意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144:1.2 (1617.5) 예수는 자신들이 은거하고 있는 세 가지 이유들을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 주었다:

144:1.3 (1617.6) 1. 왕국 복음에 대한 그들의 납득과 신앙을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144:1.4 (1617.7) 2. 유대와 갈릴리 지방에서 자신들의 일에 대한 반대가 잠잠해 지기를 기다리기 위하여.

144:1.5 (1617.8) 3. 세례자 요한의 숙명을 기다리기 위하여.

144:1.6 (1617.9) 길보아에서 기다리는 동안, 예수는 12사도들에게 자신의 초기 일생과 헤르몬 산에서의 체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자신의 세례 직후에 있었던, 언덕에서의 40일 기간 동안의 체험도 어느 정도 밝히셨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 체험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직접 당부하였다.

144:1.7 (1618.1) 이 9월의 주간들 동안, 그들은 휴식과 방문을 하며 지냈는데, 예수가 처음에 자기들을 부르셔서 봉사하게 한 이래로 자기들이 갖게 된 체험들에 대해 회상해 보았고, 그 때까지 주(主)가 자신들에게 가르치셨던 것들을 조화-협동시키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 모두는 이것이 오랫동안 휴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임을 어느 정도 눈치 채었다. 그들은 유대 또는 갈릴리 지방에서 곧 있을 자신들의 대중을 위한 수고가, 다가오는 왕국에 대한 최후선포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왕국이

왔을 때,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 될 것인가에 관한 확실한 관념을 거의 또는 전혀 갖고 있지 못하였다. 요한과 안드레는 왕국이 이미 임했다고 생각하였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아직은 임하지 않았다고 믿었다; 나다니엘과 도마는 솔직히 그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마태, 빌립, 시몬 켈로페는 확신이 서지 않은 채 혼동되어 있었다; 쌍둥이 형제는 모든 논쟁에 무관심하였고, 배반자 유다는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은 채 침묵을 고수하였다.

144:1.8 (1618.2) 예수는 이 기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야영지 가까이에 있는 산에서 혼자 보내셨다. 이따금씩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으나, 기도나 교제하기 위해 혼자 계시는 경우가 더 많았다. 예수의 세례 직후에 페레아 언덕에서 지냈던 40일에 뒤이어 일어난, 이 시기를 그의 아버지와의 기도로서 교제를 가진 것이라 말하기도 어렵고, 또 예수가 경배를 드린 것으로 말하는 것도 모순되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그의 아버지와의 사적(私的) 교제로서 언급하는 것이 전적으로 정확하겠다.

144:1.9 (1618.3) 9월 한 달 동안의 토의들의 중심 주제는 기도와 경배였다. 그들이 경배에 대한 토의를 여러 날 한 뒤에

예수가 끝으로 기도에 관한 기억에 남은만한 강연을 전하셨는데, 그것은 도마가 “주(主)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청한 것에 대한 예수의 대답이었다.

144:1.10(1618.4) 요한은 다가오는 왕국에서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었다. 예수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요한의 기도 형식을 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매우 일찍부터 자신들의 주(主)가 그러한 고정된 틀에 박힌 기도의 실천 관행을 충분하게 승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끊임없이 간청했다. 12사도들은 예수가 인정하는 기도의 형식이 어떤 것이지를 알기 원하였다. 그리하여 예수가 이때에 도마의 간청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에게 지침이 되는 기도 형식을 하나 가르칠 것을 허락한 것은, 주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간단한 기도문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예수의 이 교훈은 그들이 길보아 산에서 체류하던 셋째 주간의 어느 날 오후에 실시되었다.

제 2 장. 기도에 관한 강연

144:2.1 (1618.5) “요한은 진실로 너희에게 간단한 기도 형식을 가르쳤다: ‘오, 아버지시여, 우리를 죄로부터 사하여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며, 당신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의 가슴을 언제까지나 정화해 주옵소서. 아멘!’ 그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이 기도문을 가르쳤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 자신의 혼에 대한 표현으로 그렇게 일련의 그리고 틀에 박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도가 아니었다.

144:2.2 (1618.6) “기도는 영(靈)을 향한 혼(魂)의 태도에서의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표현이다; 기도는 아들관계의 교제이며 동료관계의 표현이어야 한다. 기도가, 영에 의해 쓰였을 때는, 협동을 이루는 영적 진보로 이끌어 준다. 이상적인 기도는 지능적 경배로 이끌어주는 영적 교제의 한 형태이다. 진정으로 기도함은 너희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늘방향으로 다가가는 진지한 태도이다.

144:2.3 (1619.1) “기도는 혼의 호흡이며, 아버지의 뜻을 확실하게 하려는 너희의 시도에서 끈질기게 계속 너희를

이끌어야만 한다. 만약에 너희 중에 누가 이웃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나의 어떤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빵 세 덩어리를 내게 빌려 달라.'고 했는데; 그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내가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 네게 빵을 줄 수가 없다.'고 하였다면, 너희는 끈질기게 계속 너희 친구가 배가 고프다는 것과 네가 그에게 제공할 아무 음식도 없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비록 그가 너희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너희에게 빵을 주지는 않을지라도 끈질지게 조르는 것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대로 너희에게 빵을 줄 것이다. 만약에 것처럼 너희의 끈질긴 계속이 필사 사람으로부터도 특혜를 얻을 수가 있다면, 영 안에서 행하는 너희의 끈질긴 계속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기꺼이 내미는 손들로부터 너희를 위한 생명의 빵을 얼마나 더 많이 얻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아나서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와 같이 구하는 자는 모두 받는다;

찾아나서는 자는 발견한다; 그리고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게 될 것이다.

144:2.4 (1619.2) "너희들 중에서 아버지가 된 사람이, 만일 자기 자식이 어리석게 간청하고 있다면, 자식의 그릇된 청원의 관점에서보다는 오히려 그 대신 어버이의 지혜에 따라서 주는 것을 주저하겠느냐? 만약에 자녀에게 빵이 필요한데, 그가 현명하지 못하게 돌덩이를 원한다고 해서 너희가 아이에게 돌덩이를 주겠느냐? 아이에게 생선이 필요한데, 그물에 생선과 함께 물뱀이 우연히 걸려들었고 아이가 바보스럽게도 그 뱀을 청한다고 해서 너희가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너희 인간도 소원하는 것을 어떻게 들어주는지를 알고, 너희 자식들에게 좋고 알맞은 선물을 어떻게 주는 줄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영과 다른 많은 축복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144:2.5 (1619.3) "어느 사악한 도시에 살았던 한 재판관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 재판관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였다. 이제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불공평한 재판관에게 계속 가서 '내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부탁하였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곧 속으로, '내가 하느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 것을 그만둘 것 같지 않으니 내가 그녀를 옹호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 이 이야기를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라고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며, 너희의 간청이 공정하고 정의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의 집요함은, 비록 하느님의 은혜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의 땅에서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며, 영적 접수성을 위한 너희 혼의 수용능력을 커지게 하는 것이다.

144:2.6 (1619.4) "그러나 너희는 기도할 때, 너희 신앙을 거의 발휘하지 못한다. 참된 신앙은, 혼의 확대와 영적 향상의 길에 가로놓인 물질적 어려움이라는 산들도 옮기게 될 것이다."

제 3 장. 믿는 자의 기도

144:3.1 (1619.5) 그러나 사도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예수가 새로운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모범이 될 만한 기도문을 자기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였다. 기도에 관한 이 강연을 듣고 난 후, 야고보 세베대가 말하였다: “참으로 좋습니다, 주(主)여,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형식을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지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자주 간청하는 새로운 신도들 때문입니다.”

144:3.2 (1619.6) 야고보가 말을 끝내자 예수가 말씀하였다: “만약 너희가 여전히 그러한 기도를 원한다면, 내가 나사렛에서 내 형제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알려주겠다:

144:3.3 (1620.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44:3.4 (1620.2)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바랍니다.

144:3.5 (1620.3)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144:3.6 (1620.4)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144:3.7 (1620.5) 오늘 우리에게 내일을 위한 우리의 빵을 주시고;

144:3.8 (1620.6) 우리의 혼을 생명의 물로 새롭게 하옵소서.

144:3.9 (1620.7)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144:3.10 (1620.8) 우리의 모든 빛진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144:3.11 (1620.9) 우리를 시험에서 구원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시며,

144:3.12 (1620.10) 우리를 당신처럼 점점 더 완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144:3.13 (1620.11) 사도들이 신도들을 위한 모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께 원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 추종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기도문들을 가르쳤으며, 모든 다른 위대한 선생들도 자기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들을 만들었었다. 유대인들의 종교 교사들은 25 내지 30개의 고정된 기도문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회당에서나 길거리의 모퉁이에서까지도 낭송했다. 예수는 특히 대중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혐오하였다. 12사도들은 이때까지 그가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을 겨우 몇 번 정도만 목격했을 뿐이었다. 그들은 그가 온 밤을 기도나 경배로 지새우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기도

방식이나 형식을 무척 알고 싶어 하였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그들이 자기들에게도 그와 같은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예수께 청하였을 때, 그들은 진정으로 대중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방법을 알기 원하였던 것이다.

144:3.14 (1620.12) 예수는 언제나 남 몰래 기도할 것을 12사도들에게 가르치셨으며; 그들 자신들끼리만 자연 속으로 가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도록 지시하였다.

144:3.15 (1620.13) 예수가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상승한 후에,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던 이 기도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추가함으로써 끝마치는 것이 많은 신도들의 실천 관행이 되어 갔다. 그리고 훨씬 나중에는 복사하는 과정에서 두 줄이 빠지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구절이 이 기도문에 보태졌다: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당신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144:3.16 (1620.14) 예수는 나사렛 집에서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들에게 공동체 형식의 기도문을 가르치셨다. 그는 형식을 갖춘 개인적 기도를 절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단지 집단, 가족, 혹은 사회적인 차원에서만 그런 간청들을 하도록 가르치셨다. 그리고 자신은 절대로 그런 기도를 자청해서 하지 않았다.

144:3.17 (1620.15) 예수는 효력이 있는 기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사심 없음—홀로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님 믿음—신앙에 따름. 성실—가슴에서의 정직함. 지능적—빛에 따름. 신뢰성—아버지의 모든-지혜의 뜻에 복종함.

144:3.18 (1620.16) 1. 사심 없음—홀로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님

144:3.19 (1620.17) 2. 믿음—신앙에 따름.

144:3.20 (1620.18) 3. 성실—가슴에서의 정직함.

144:3.21 (1620.19) 4. 지능적—빛에 따름.

144:3.22 (1620.20) 5. 신뢰성—아버지의 모든-지혜의 뜻에 복종함.

144:3.23 (1620.21) 예수가 산 위에서 기도하며 밤을 지새울 때, 그것은 주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특히 12사도들을 위해서였다. 주(主)는 자신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와의 교제를 납득하는 본성의 경배를 많이 드리긴 하였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한 적이 거의 없었다.

제 4 장. 기도에 대해 더 하신 설명

144:4.1 (1620.22) 기도에 관한 강연이 있는 후 여러 날 동안, 사도들은 주(主)께 가장 중요하고 경건한 이 실천 관행에 관해 질문을 계속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기도와 경배에 관하여 사도들에게 주신 예수의 가르침은 현대 용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되고 다시 서술될 수 있다:

144:4.2 (1621.1) 어떤 청원이든지 진지하고 갈망에 찬 반복은, 그러한 기도가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진지한 표현이고 신앙에서 나왔다면, 얼마나 무분별하던지 또는 직접응답이 불가능하던지 상관없이, 그것은 영적 접수성을 위한 혼의 힘을 확대시키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144:4.3 (1620.10) 기도할 때에는 언제나, 아들관계가 하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어떤 자녀도 아들이나 딸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해야 할 것은 없다. 지상의 자녀는 부모의 뜻에 의해 세상에 태어난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느님의 자녀는 은총 안에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 영의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 따라서 하늘의 왕국—신성한 아들관계—는 작은 어린아이가 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너희가 정의로움—진보하는 성격 발달—은 획득하지만, 아들관계는 너희가 은총에 의하여 그리고 신앙을 통하여 받는다.

144:4.4 (1620.11) 기도가 예수를 이끌어서, 그의 혼이 우주들의 우주의 최극 통치자들과의 초(超)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기도는 이 세상의 필사자들을 진정한 경배의 교제로 이끌어줄 것이다. 접수성에 대한 혼의 영적 수용능력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개인적으로 총당될 수 있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하늘 축복의 분량을 결정한다.

144:4.5 (1620.12) 기도와 그것에 관련된 경배는 일생의 매일의 진부한 일과로부터, 물질적 실존의 고되고 단조로운 삶으로부터 해방되는 하나의 기법이다. 그것은 영성화된 자아-실현과 지능적이 그리고 종교적 달성의 개별존재성에 가까이 이르는 큰길이다.

144:4.6 (1620.13) 기도는 해로운 내면-성찰에 대한 해독제이다. 적어도 주(主)가 가르쳐 준 것과 같은 기도는 혼에 그렇게 매우 유익한 사명활동이다. 예수는 자신의 동료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의 유익한 영향들을 이용하였다. 주(主)는 평소에 단수가 아닌 복수로 기도하였다. 자신의 지상(地上) 일생의 큰 위기 속에서 오로지 한 번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144:4.7 (1620.14) 기도는 인류종족들의 물질문명 한 가운데에 있는 영(靈) 생명의 숨이다. 경배는 쾌락을-찾아나서는 필사자들의 세대를 위한 구원이다.

144:4.8 (1620.15) 기도가 혼의 영적 건전지를 재충전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해도 좋은 것 같이, 것처럼 경배는 우주 아버지의 무한한 영의 우주 방송을 잡아채려고 혼 안에서 조율하고 있는 행동에 비교될 수도 있다.

144:4.9 (1620.16) 기도는 자녀가 자신의 영 아버지를 진지하게 그리고 갈망하면서 쳐다보는 표정이다; 그것은 인간 의지를 신성한 의지와 교환하고 있는 정신적 과정이다. 기도는 어떤 무엇으로 있는 그것을 어떤 무엇으로

되어있어야 하는 그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신성한 계획의 한 부분이다.

144:4.10 (1620.17) 예수와 긴 철야(徹夜)기도에 그렇게 자주 동반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가 기도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주(主)가 기도를 거의 입 밖으로 소리 내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실천적으로 모든 예수의 기도는 영으로 그리고 가슴으로—침묵으로—하였다.

144:4.11 (1620.18) 모든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기도와 경배에 관한 주(主)의 가르침을 가장 가깝게 이해하였다.

제 5 장. 기도의 다른 형식들

144:5.1 (1621.11) 때때로, 예수의 땅에서 머무르는 나머지 기간 동안, 그는 여러 개의 다른 기도 형식들을 사도들에게 알려주었으나, 그러나 그는 이것을 단지 다른 방법들을 예시하면서 가져온 것이며 그리고 그는 이들 "비유적인 기도들"이 군중들에게 가르쳐져서는 안 된다고 명하였다. 그 기도들 중에서 많은 것들은 사람이 사는 다른 행성들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예수는 이 사실을

12사도들에게 밝히지 않았다. 이 기도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144:5.2 (1622.1) 그 안에 우주의 영역들이 존재해 있는 우리의 아버지시여,

144:5.3 (1622.2)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당신의 성격이 무한한 영광을 받으소서.

144:5.4 (1622.3) 당신의 현존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당신의 영광이 현시되시며

144:5.5 (1622.4) 그것이 위에서 완전하게 보인 것처럼 불완전하게나마 우리를 통해 현시되게 하소서.

144:5.6 (1622.5) 우리에게 오늘 날 활기찬 빛의 힘을 주시고,

144:5.7 (1622.6)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상상하는 악의 길로 빠져들지 말게 하시며,

144:5.8 (1622.7) 영속하는 힘, 영광스러운 내주하심이 당신의 것이오니,

144:5.9 (1622.8) 우리에게는 당신의 아들의 무한한 사랑의 영구한 선물을 주시옵소서.

144:5.10 (1622.9) 참으로 그러하오니, 그렇게 영속적인 진리가
되소서.

144:5.11 (1622.10) 우주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의 창조적인
부모시여,

144:5.12 (1622.11) 우리에게 당신의 본성을 부여하시고 당신의
성격을 주시옵소서.

144:5.13 (1622.12) 자비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들로
만드시고,

144:5.14 (1622.13) 우리의 영원한 성취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144:5.15 (1622.14) 당신이 조절하시고 통제하시는 영을 우리 안에
살고 거하시게 하셔서

144:5.16 (1622.15) 천사가 빛으로 당신의 명령을 행하듯이 우리로
이 구체에서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144:5.17 (1622.16) 오늘날 진리의 길을 따라 향상하는 우리를
불들어 주시옵소서.

144:5.18 (1622.17) 우리를 타성과 악과 모든 악한 범죄로부터
구원하소서.

144:5.19 (1622.18)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자애로움을 보인
것처럼 우리를 참으소서.

144:5.20 (1622.19) 우리 창조체의 가슴속에 당신의 자비의 영을
보내 주시옵소서.

144:5.21 (1622.20) 당신이 우리 손을 잡고 불확실한 인생의 미로를
걸어갈 때 한 발자국마다 이끌어 주시고,

144:5.22 (1622.21) 우리가 세상을 마칠 때에 신실한 우리의 영들을
당신 자신의 품속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144:5.23 (1622.22) 참으로 그러하사오니, 우리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144:5.24 (1622.23) 우리의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144:5.25 (1622.24) 오늘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밝히시옵소서.

144:5.26 (1622.25) 우리의 발걸음을 정화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조화-협동하소서.

144:5.27 (1622.26) 우리를 영원으로 가는 길로 항상 인도하소서.

144:5.28 (1622.27) 능력이 가득할 때까지 우리를 지혜로
채워주시며

144:5.29 (1622.28) 당신의 무한한 에너지로 생기를 주소서.

144:5.30 (1622.29) 세라핌천사 무리의 현존과 인도에 대한

144:5.31 (1622.30) 신성한 의식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144:5.32 (1622.31) 빛의 길로 우리를 항상 끌어 올려 주시고;

144:5.33 (1622.32) 큰 심판의 날에 우리를 온전히 옹호하여
주소서.

144:5.34 (1622.33) 영원한 영광 안에서 당신 자신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144:5.35 (1622.34) 높은 곳에 있는 당신의 끝없는 봉사 안으로
우리를 받아주소서.

144:5.36 (1622.35) 신비 속에 계신 우리 아버지,

144:5.37 (1622.36)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성격을 나타내소서.

144:5.38 (1622.37) 오늘날 지상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144:5.39 (1622.38) 길과 빛과 진리를 보여 주소서.

144:5.40 (1622.39) 우리에게 영원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144:5.41 (1622.40)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의지를 주소서.

144:5.42 (1622.41) 당신의 신성한 왕 신분을 우리 안에 세우시고

144:5.43 (1622.42) 그것으로써 우리에게 자아의 충분한 통달을
증여해 주소서.

144:5.44 (1622.43) 우리로 하여금 어둠과 죽음의 길로 들게 하지
마시고;

144:5.45 (1622.44) 생명수 곁으로 영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소서.

144:5.46 (1622.45)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144:5.47 (1622.46)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당신을 더욱 더 닮게
하심을 기뻐하옵소서.

144:5.48 (1623.1) 마침내, 신성한 아들을 위하여

144:5.49 (1623.2) 영원한 품안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옵소서.

144:5.50 (1623.3) 참으로 그러하사오니, 우리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144:5.51 (1623.4) 두 분이 하나가 되어 부모가 되시는 영광의
아버지와 어머니시여,

144:5.52 (1623.5) 당신의 성스러운 본성에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게
하소서.

144:5.53 (1623.6) 당신의 신성한 영의 증여와 선물로

144:5.54 (1623.7) 당신이 가지신 스스로를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시 사시고,

144:5.55 (1623.8) 당신이 높은 곳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장엄하게
보이듯이

144:5.56 (1623.9) 그렇게 이 구체에서 불완전하게 당신을 다시
보이옵소서.

144:5.57 (1623.10) 우리에게 형제신분의 즐거운 사명활동을 날마다
허락하시고,

144:5.58 (1623.11) 사랑하는 봉사의 길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소서.

144:5.59 (1623.12) 우리에게 언제나 끊임없이 참으시며

144:5.60 (1623.13) 우리로 당신의 인내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보이게 하소서.

144:5.61 (1623.14) 모든 일을 잘 다스리는 신성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144:5.62 (1623.15) 모든 창조체에게 은혜가 되는 무한한 사랑을 주소서.

144:5.63 (1623.16) 우리에게 당신의 인내와 자애로움을 내리시고

144:5.64 (1623.17) 우리의 자비로 이 영역의 약한 곳을 끌어안게 하소서.

144:5.65 (1623.18) 우리의 인생이 완결되어지면, 그것이 당신에게 영광이 되며,

144:5.66 (1623.19) 당신의 선한 영에게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혼의 조력자들에게 만족이 되게 하소서.

144:5.67 (1623.20) 우리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시여, 우리의
소망대로 하지 마시고,

144:5.68 (1623.21) 당신의 인간 자녀들의 영원한 선을 위하여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144:5.69 (1623.22) 참으로 그러하시기를 원하나이다.

144:5.70 (1623.23)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원이며 모든 능력의
중심이시여,

144:5.71 (1623.24) 당신의 온전히 자비로우신 아들의 이름이
존경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144:5.72 (1623.25) 당신의 자비심과 축복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144:5.73 (1623.26) 그렇게 우리로 당신의 뜻을 행하고 당신의
명령을 행하도록 힘을 주소서.

144:5.74 (1623.27)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양분을
주시고;

144:5.75 (1623.28) 우리를 매일 그 강의 생명수로 새롭게 하소서.

144:5.76 (1623.29) 매 발자국마다 우리를 어둠에서 끌어내시고
신성한 빛으로 인도하소서.

144:5.77 (1623.30) 내재하시는 영의 변환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144:5.78 (1623.31) 그리고 필사자 마지막이 마침내 우리에게 왔을
때,

144:5.79 (1623.32) 우리를 당신자신에게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원
가운데 나오게 보내주옵소서.

144:5.80 (1623.33) 결실의 봉사에 대한 천상의 왕관으로 우리에게
씩우시고

144:5.81 (1623.34)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거룩한
권능자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144:5.82 (1623.35) 끝이 없이 우주를 통하여, 그렇게 되기를

144:5.83 (1623.36) 우주의 신비한 곳에 거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여,

144:5.84 (1623.37)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당신의 자비를
존경하며, 당신의 판단을 존중하나이다.

144:5.85 (1623.38) 어스름 안에서 우리의 번덕스러운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탄원할 때에.

144:5.86 (1623.39) 정의로움의 태양이 우리를 비추어 한 낮에 있게
하소서.

144:5.87 (1623.40) 당신 자신이 선택한 길로 우리 손을 잡고
인도하시고

144:5.88 (1623.41) 길이 평탄치 않고 어두운 시간에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144:5.89 (1623.42) 우리가 자주 당신을 소홀히 하고 잊은 것처럼
우리를 잊지 마시고

144:5.90 (1623.43)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갈망하듯이 당신이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옵소서.

144:5.91 (1623.44)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다치게 하는 자들을
공의로 용서한 것 같이

144:5.92 (1624.1) 우리를 친절함으로 내려다보시고 자비로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144:5.93 (1624.2) 장엄한 아들의 사랑과 헌신과 증여가

144:5.94 (1624.3) 당신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유용한 생명을
영속하게 하소서.

144:5.95 (1624.4) 우주들의 하느님이 그의 영을 충만할 정도로
우리에게 보내시며;

144:5.96 (1624.5) 이 영의 인도를 따라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144:5.97 (1624.6) 헌신하는 세라핌천사 무리들의 사랑 많은
사명활동으로

144:5.98 (1624.7) 세대 끝까지 아들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게
하소서.

144:5.99 (1624.8) 우리가 언제나 점점 더 당신자신과 닮게 하시고

144:5.100 (1624.9)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를 영원한
파라다이스의 품안으로 받아 주소서.

144:5.101 (1624.10) 참으로 그러하사오니, 증여되는 아들의
이름으로

144:5.102 (1624.11) 사도들은 이러한 기도들을 대중을 위한
가르침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이 모든

게시들이 사도들의 개인적 종교 체험에 많은 혜택을 주었다. 예수는 이것들 그리고 다른 모형의 기도들을 12사도들의 사사로운 가르침에 관련하면서 예제로 사용하였는데, 이 기록에서 이들 7개의 표본 기도들이 옮겨 쓸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되었다.

제 6 장. 요한의 사도들과의 회의

144:6.1 (1624.12) 10월 1일경 빌립과 몇 명의 동료 사도들이 가까운 마을에서 음식물을 사고 있는 중에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중 몇 명을 만나게 되었다. 시장(市場)에서의 이런 우연한 만남의 결과로 예수의 사도들과 요한의 사도들이 길보아 야영지에서 삼 주일 동안의 회합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요한이 최근에 예수를 본받아 12명의 영도자들을 사도들로 임명했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요한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들 중 우두머리인 아브너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예수는 이 공동 회합의 첫 주일 동안 내내 길보아 야영지에 있었지만, 마지막 두 주일 동안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

144:6.2 (1624.13) 이 달의 두 번째 주 초순경에, 아브너는 길보아 야영지에 있던 자신의 모든 연관-동료들을 소집하였고,

예수의 사도들과의 회합에 참석할 준비를 마쳤다. 이들 24명은 삼 주일 동안 하루에 3번씩, 일주일에 엿새 동안 회합을 가졌다. 첫 번째 주에는 예수가 그들과 함께 오전, 오후, 밤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들은 주(主)가 자기들과 함께 계시면서 공동 토의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였지만, 그는 한사코 그들의 토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 번에 걸쳐 강연을 허락하였다. 예수가 24명의 사람들에게 하였던 강연들은 동정심, 협조, 관용에 관한 것이었다.

144:6.3 (1624.14) 안드레와 아브너는 두 사도 집단들의 공동 회의에서 사회를 번갈아 맡았다. 이 사람들에게는 토의해야 할 많은 어려움들과 풀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거듭하여 그들이 예수께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갔으나, 단지 다음의 대답만을 들을 수 있을 뿐 이었다: “나는 오직 너희의 개인적 문제와 순수하게 종교적인 문제들에만 관심이 있다. 나는 개별존재에 대한 아버지의 대리인이며, 집단에 대한 대리인은 아니다. 너희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적 어려움이 있으면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고, 너희의 문제에 대한 조언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종교적인 문제들에서 다양한 인간 해석들에 대한 조화-협동이라든지 종교의 사회화에 대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너희 자신들의 판단으로 그것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운명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동정심을 갖고 있고 항상 관심을 갖고 있으며, 비(非)영적 의미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너희가 결론에 도달하고 모두가 그것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내가 나의 충분한 동의와 진정한 협조를 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의 자유로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나는 2주 동안 떠나겠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 올 것이니, 나에게 대해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의 일을 돌보고자 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곳 이외의 다른 영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44:6.4 (1625.1) 그런 말씀을 하고 예수가 산을 내려 가셨는데, 그 후 그들은 2주 동안 그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기간 동안 그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 24명의 사람들은, 주(主)가 떠난 영향으로 매우 좌절되었으므로, 다시 자신들의 문제들 가운데로 돌아가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야 하였다. 어쨌든, 한 주일이 지나기 전에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핵심적인 토론으로 돌아갔으며, 예수의 도움을 구할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144:6.5 (1625.2) 그 집단들이 첫 번째로 동의하였던 항목은 예수가 최근에 그들에게 가르쳤던 기도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었다. 이 기도를 신도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정하는 일에 양쪽 사도들은 투표에 의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144:6.6 (1625.3) 그 다음으로 그들이 결정한 것은, 요한이 살아있는 한, 그가 감옥에 있던지 석방되든지에 관계없이 두 12사도 집단들은 현재의 자신들의 일을 계속할 것과 그때마다 쌍방의 동의를 얻은 장소에서 일 주일 동안의 연관 회의를 매 3달마다 갖는 것이었다.

144:6.7 (1625.4) 그러나 그들의 모든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부분은 세례에 관한 것이었다. 그 문제는 그것에 대하여 예수가 어떤 발언도하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더욱 어려웠다. 그들은 마침내 다음과 같이 동의하였다: 요한이 살아 있는 한, 혹은 그들이 공동으로 이 결정을 수정하기까지는, 단지 요한의 사도들만이 신도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며 예수의 사도들만이 최종적으로 새로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줄 것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때부터 요한이 죽을 때까지 두 명의 요한의 사도가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와 그의 사도들과 동행하였는데, 그것은 세례가 왕국의 관련사들로는 밖으로 내보이는 동맹으로서, 첫 단계가 된다는 것을 공동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기 때문이었다.

144:6.8 (1625.5) 그 다음으로 동의된 것은, 요한이 죽을 경우에 요한의 사도들이 예수께 자청하여 나와 그의 지도를 따를 것이며, 예수나 그의 사도들의 허락 없이는 더 이상 세례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144:6.9 (1625.6) 그 다음에는, 요한이 죽을 경우에 예수의 사도들이 신성한 영 세례에 대한 상징으로 물세례를 주기 시작할 것을 가결했다. 세례에 대한 연설에서 그들이 회개를 포함해야 할지 아닌지는 선택의 여지로 남겨두었다; 그 집단을 제한할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 요한의 사도들은 설교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였다. 예수의 사도들은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하였다.

144:6.10 (1625.7) 그리고 이것은, 예수의 추종자들이 다양한 노력들을 조화-협동시키고, 의견의 차이들을 안정시키고, 집단적인 일들을 조직하고, 외부적인 일들에 관한 법을 결정하고, 개인적인 종교적 실천을 사회화시키려는 첫 번째 시도에 관한 이야기이다.

144:6.11 (1625.8) 많은 다른 사소한 일들이 거론되었고 그것들의 해결책들이 만장일치로 동의되었다. 이들 24명의 사람들은 예수도 없이, 그들이 문제점들과 마주하고 어려움들을 풀어나가야만 했던 이러한 두 주일 동안에 진정으로 훌륭한 체험을 하였다. 그들은 서로 의견을 달리 하는 것, 토론하는 것, 논쟁하는 것, 기도하는 것, 협상하는 것을 배웠고, 그 기간 내내 다른 사람의 견해에 동정적이었고,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상대방의 정직한 의견들에 대해 관용도 베풀었다.

144:6.12 (1625.9)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마지막 토의를 하던 어느 날 오후에 예수가 돌아왔다. 그가 그들의 토론들에 관한 이야기와 그들이 내린 결정들에 대해 주의 깊게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것들이 이제는 너희의 결론들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 각자에게 너희의 연합

결정이라는 정신이 끝까지 이행되도록 기꺼이 도울 것이다.”

^{144:6.13 (1626.1)} 이때로부터 두 달 반 후에, 요한이 처형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내내 요한의 사도들은 예수와 12사도들과 함께 남아 있었다. 그들 모두는 데카폴리스의 도시들에서 이 수고의 계절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일을 하였고,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길보아 야영지는 서기 27년 11월 2일에 해체되었다.

제 7 장. 데카폴리스의 여러 도시에서

^{144:7.1 (1626.2)} 11월과 12월 내내, 예수와 24명은 데카폴리스에 있는 그리스 도시들에서 조용하게 일하였는데, 주로 스키토폴리스, 게라사, 아빌라, 가다라 등지에서 일하였다. 이것은 실제로 요한의 일과 조직을 넘겨받는 예비 과정의 마지막 기간이었다. 새로운 계시를 주는 사회적인 종교는, 구원을 모색하는 기존(既存) 종교의 확립되어 있는 형식들 그리고 관례들과 타협하는 값을 치러야만 한다. 세례는, 예수의 추종자들이 세례자 요한의 추종자들, 사회화(社會化)한 종교적 집단으로서의 그들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치러야했던 값이었다. 요한의 추종자들은,

예수의 추종자들과 합치는데 있어서, 물세례를 빼고는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

144:7.2 (1626.3) 예수는 데카폴리스의 도시에서는 거의 대중 가르침을 하지 않았다. 그는 24명을 가르치는 일에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였으며, 요한의 12사도들과는 여러 차례의 특별 수업들을 가졌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왜 예수가 감옥에 있는 요한을 방문하러 가지 않았으며, 왜 그가 그의 석방을 보장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좀 더 납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예수가 결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신성한 권한에 대한 외형적인 표적을 일으키기를 거절하는지를 납득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길보아 야영지로 오기 전에는 주로 요한의 증거로 인하여 예수를 믿었으나, 그 뒤에는 곧 직접적인 주(主)와의 접촉과 그의 가르침의 결과로 인해 믿기 시작하였다.

144:7.3 (1626.4) 이러한 두 달 기간 동안, 그 집단은 대부분 짝을 지어 일하였는데, 예수의 사도 한 사람과 요한의 사도 한 사람이 함께 일하였다. 요한의 사도가 세례를 주었고, 예수의 사도는 가르침을 주었으며, 한편으로는 그들

모두가 자기들이 납득하는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이방인들과 유대교를 버린 이들 중에서 많은 혼들을 구원시켰다.

144:7.4 (1626.5) 요한의 사도들의 우두머리인 아브너는 예수를 충심으로 믿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주(主)가 그 복음을 가르치도록 임무를 맡긴 70명 선생들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제 8 장. 펠라 근처에 있는 야영지에서

144:8.1 (1626.6) 12월 후반기에, 그들 모두는 펠라에서 가까운 요단강 근처로 갔으며, 그곳에서 다시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복음을 들으러 이 야영지로 찾아 왔다. 예수가 어느 날 오후에 군중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요한의 절친한 친구들이 요한으로부터의 마지막 전갈을 주(主)께 전하러 왔다.

144:8.2 (1626.7) 요한은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었으며, 대부분의 이 기간 동안, 예수는 매우 조용하게 일을 진행하였으므로; 요한이 왕국 일에 대해서 궁금해 하였던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요한의 친구가 다음과 같은 말로 예수의 가르침을 중단시켰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보내 다음과 같이 물으라고 했습니다.—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144:8.3 (1626.8) **예수가 요한의 친구들에게 말씀하기 위해 잠시 멈추셨다:** “돌아가서 요한에게 그가 잊힌 것이 아니라고 전해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에게 말하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리고 예수는 요한의 메신저들에게 말씀을 덧붙이신 후에, 다시 무리를 돌아보며 말씀하였다: “요한이 왕국 복음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는 단지, 내 제자이기도 한, 자신의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물은 것뿐이다. 요한은 약한 자가 아니다. 헤롯이 그를 감옥에 가두기 전에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너희들에게 묻겠다: 요한에게서 너희는 무엇을 보았더냐—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감정이 번덕스럽고 부드러운 천의 옷을 입은 사람이더냐? 대체로 화려한 복장을 입은 사람과 우아하게 살고 있는 이들은 왕궁이나 부자의 집안에 있다. 그러나 너희가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알았느냐? 선지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그는 선지자보다도 더 큰 자이다. 요한에 대해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내 메신저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고 하였다.”

144:8.4 (1627.1)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난 적이 없다. 앞으로는 하늘의 왕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데, 그것은 그가 영으로 태어났으며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기 때문이다.”

144:8.5 (1627.2) 그 날 예수의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며, 왕국에 들어간 것을 그렇게 하여 공개적으로 고백하였다. 요한의 사도들은 그 날 이후로 예수와 단단하게 연합되었다. 이 발생사건이 요한과 예수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실제 화합을 시작하게 하였다.

144:8.6 (1627.3) 그 메신저들은 아브너와 이야기를 나눈 후, 요한에게 이 모든 것을 보고하기 위해 마케루스로 떠났다. 요한은 크게 위안을 받았으며, 그의 신앙은 예수의 말과 아브너로부터의 소식으로 인하여 강화되었다.

144:8.7 (1627.4) 이 날 오후에 예수는 가르침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나 나의 가르침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같아서 그들이 친구들을 불러 말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통곡을 하여도 너희는 슬퍼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너희 중의 일부도 그와 마찬가지로이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자 저희는 그가 악마에게 사로잡혔다고 하였다.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똑같은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내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다'라고 하였다. 정말로, 지혜는 그 때의 어린아이들로 인하여 정당화되는 법이다.

144:8.8 (1627.5)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러한 진리들을 지혜롭고 거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잘 주관하며;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우주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혼들을 위해 휴식을 얻게 될 것이다. 신성한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하느님의 평안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제 9 장. 세례자 요한의 죽음

144:9.1 (1627.6) 세례자 요한은 서기 28년 1월 10일 밤에 헤롯 안티파스의 명령으로 처형되었다. 다음 날 요한의 제자 몇 명이 그의 처형 소식을 듣고 마케루스로 가서 그의 시체를 찾아 묻었으며, 나중에는 다시 아브너의 고향인 세바스티에 묻었다. 그 다음 날인 1월 12일에, 그들은 펠라 근처에 있던 요한과 예수의 사도들의 야영지로 가서 요한의 죽음을 예수께 전하였다. 예수는 그들의 보고를 받자 무리들을 해산시키시고 24명을 한 자리에 불러 놓고 말씀하였다: “요한이 죽었다. 헤롯이 그의 목을 베었다. 오늘 밤 공동 협의회를 갖고 그에 따른 너희의 관련사들을 준비하여라.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왕국을 공개적으로 힘차게 선포할 때가 왔다. 우리는 내일 갈릴리로 떠날 것이다.”

144:9.2 (1627.7) 따라서, 서기 28년 1월 13일 이른 아침에, 예수와 사도들은 25명쯤 되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을 향해

그들의 길을 떠났으며, 세베대의 집에서 그날 밤 숙박하였다.

제 145 편 가버나움에서의 사건 많은 4일간

145:0.1 (1628.1) 1월 13일 화요일 밤, 예수의 사도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하였다. 평소처럼, 그들은 본부를 벳세다에 있는 세베대의 집에 세웠다. 이제 세례자 요한이 죽자 예수는 첫 번째의 공개적인 대중 연설을 갈릴리 여정에서 시작하기로 준비하였다. 예수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빠른 속도로 도시 전역을 통해 퍼졌으며,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아들인 요셉을 만나러 나사렛으로 서둘러 떠났다.

145:0.2 (1628.2) 수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예수는 최초의 대규모 대중 연설을 시작하는 여행에 대비하여 세베대의 집에서 자기 사도들에게 지시를 내리셨다. 그는 또한 많은 열렬한 문의자들을 개별로 또는 집단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가르치셨다. 자신이 돌아오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안드레를 통하여 주선시키셨다.

145:0.3 (1628.3) 금요일 저녁 늦게 예수의 막내 동생인 룻이 남 몰래 그를 만나러 왔다. 그들은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정박해 있던 배에서 거의 한 시간 동안이나 이야기하였다. 요한 세베대를 제외한 어떤 인간존재도 이 방문에 대해 알지 못했는데,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받았었다. 예수의 가족들 중에서 롯은, 그녀가 영적 의식을 시작한 초기부터 그의 중대한 사명활동, 죽음, 부활, 상승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지상 사명의 신성함을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믿었던 단 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자기 육친의 아버지-오빠의 사명에 대한 초자연적 성격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예수의 이 세상 가족들을 생각해 볼 때, 막내 동생 롯은, 그의 재판, 기각, 십자가형이라는 신성재판 내내 주요 위안이 되었다.

제 1 장. 물고기를 들어올림

^{145:1.1 (1628.4)} 같은 그 주간의 금요일 아침에, 예수가 물가에서 가르치시고 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물 가까이까지 붐비게 되자, 그는 근처의 배에 타고 있던 어부에게 그의 구조를 청하였다. 그는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배에 서신 채로 두 시간 이상을 더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그 배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전에 시몬 베드로가 고기잡이배로 사용했던 것으로써 예수가 손수 만드신 배였다. 이 특별한 날 아침에, 그 배에는 다윗

세베대와 두 명의 연관-동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간밤에 호수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해변 가까이에 막 도착했었다. 그들은 예수가 자기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을 때, 그물을 씻고 수선하는 중이었다.

145:1.2 (1628.5) 예수가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끝마치신 후에 다윗에게 말씀하였다: “네가 나를 도와주러 오느라 지체했으므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고기를 잡으러 가자. 저쪽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한 그물 가득히 걷어 올려라.” 그러나 다윗의 보좌관 중의 하나인 시몬이 말하였다: “주(主)여,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 것도 잡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께서 시키시니, 우리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의 주인인 다윗이 손짓을 하였기 때문에, 시몬은 예수의 지도를 따르기로 동의하였다. 그들이 예수가 가리키는 장소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터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혔으며, 고기들이 너무 많아서 해변에 있던 자기 연관-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하였다. 그들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세 척의 배에 고기를 가득 실은 후에, 시몬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主)여, 저로부터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시몬뿐만 아니라 이 에피소드와 관련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굉장한 고기잡이 수확에 경탄하였다. 그 날부터 세베대 다윗, 그 시몬,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들은 그물을 내던지고 예수를 따라갔다.

145:1.3 (1629.1) 그러나 이 때 잡은 고기는 어떤 면에서도 기적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는 원래 자연을 세심히 관찰하는 사람인데다가 체험 있는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고기들의 생태를 잘 알고 계셨다. 이 경우에는, 그가 단지 고기들이 흔히 그 시간에 잘 잡히는 장소로 이 사람들을 안내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예수의 추종자들은 항상 이것을 기적이라고 여겼다.

제 2 장. 회당에서의 오후

145:2.1 (1629.2) 그 다음 안식일에 회당에서 있었던 오후 봉사에배중에,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아침에는 시몬 베드로가 "왕국"에 대해 설교하였다. 회당에서 있었던 목요일 밤 회합에서는 안드레가 가르쳤는데, 그의 주제는 "새로운 길"이었다. 이 특정한 시간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한 도시에서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믿었다.

145:2.2 (1629.3) **예수가 이 안식일 오후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관습에 따라 율법서로부터 첫 번째 본문(本文)을 택하였고, 출애굽기에서 읽었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이신 주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너희로부터 모든 병을 제하실 것이다.” 그는 두 번째 본문을 예언서들로부터 택하고, 이사야서로부터 읽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주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민족을 가리겠지만, 주님의 영이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신성한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실 것이다. 이방인들까지도 이 빛으로 나아오며,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빛의 광명 아래에 굴복할 것이다.”

145:2.3 (1629.4)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는 종교가 하나의 개인적 체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려고 노력하였다.** 여러 다른 말들 중에서도, 주(主)가 다음의 말씀을 하였다:

“인정 많은 아버지가 자기 가족을 하나의 전체로서 사랑하지만, 그가 이렇게 그들을 한 집단으로 여기는 것은 그 가족의 각 개별존재에 대한 강한 애정 때문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잘 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더 이상 이스라엘의 자녀로 가까이 가지 말고, 오히려 하느님의 자녀로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집단으로 볼 때, 너희는 진실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지만, 개별존재로서의 너희 각자는 하느님의 자녀이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를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별존재인 믿는 자에게 순수한 개인적 체험이 되도록 이러한 하느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사랑 그리고 자비에 대한 계시를 가져다주기 위해서이다. 선지자들은 모두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왔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 안에 좀 더 큰 진리, 많은 후세의 선지자들 역시 파악했던, 하느님께서 너희—너희 각자—를 개별존재로서 사랑한다는 것이다. 너희 이 모든 세대들은 민족의 혹은 종족 차원의 종교를 가져왔지만; 이제는 내가 개인적 종교를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

145:2.5 (1630.1) “그러나 이것도 새로운 관념이 아니다. 너희들 중에서 영적으로 생각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일부의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성서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다음의 말을 한 것을 읽지 못했느냐: ‘그 때에는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고 그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마다 그 자신의 사악한 불의로 죽게 될 것이다. 이와 같으니, 신 포도를 먹는 사람은 이가 시릴 수밖에 없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는 날이 올 것인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데리고 오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고 새로운 방법에 의거한 것이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날에 사람들은, 한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네가 주님을 아느냐고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아니다!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제일 큰 자까지 다 나를 개인적으로 알 것이기 때문이다.’

145:2.6 (1630.2) “너희는 이러한 약속들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성서를 믿지 않느냐?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말들이

바로 이 시대에 너희가 보는 앞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납득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예레미야가 너희에게
종교를 가슴에서의 관련사로 만들라고, 너희 자신을
하느님에게 개별존재로서 관련시키라고 훈계하지
않았더냐? 그 선지자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너희 각자의 본심을 찾으신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본성적 인간의 본심은
무엇보다도 남을 잘 속이고, 종종 절망적으로 악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경고 받지 않았느냐?

145:2,7 (1630.3) “너희는 또한 에스겔이, 종교는 너희의 개별적
체험에서 실체가 되어야한다는 것을 너희 조상들에게도
가르쳤던 부분을 읽지 않았느냐? 너희는 다음과 같은
속담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마라: ‘조상들이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다.’ 주님 하느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살아 있으므로 모든 혼들이 다 내 것임을
보라; 아비의 혼이 그러하듯, 아들의 혼도 마찬가지이다.
범죄 하는 그 혼들만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은
하느님을 대신하여 오늘날까지도 예언하여 말하기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로운 본심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였다.

145:2.8 (1630.4) “너희는 하느님이 한 개별존재의 죄로 인하여 민족을 벌주실 것이라고 더 이상 두려워 말며;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믿음이 깊은 자기 자녀들을 민족의 죄로 인하여 벌하지도 않으시겠지만, 허지만 모든 가정의 가족 개개인들은 가족의 오류나 집단적 죄의 물질적인 결과로 흔히 고통을 당하여만 한다. 좀 더 나은 국가—혹은 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이 개별존재의 향상과 깨우침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145:2.9 (1630.5) 그리고 나서 주(主)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람이 이러한 영적 자유를 식별한 후에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자녀들이 파라다이스로의 영원한 상승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였으며, 이 상승의 길은 창조자를 발견하고 하느님을 알고 것처럼 되기를 추구하는, 내주 하는 영의 신성한 충동에 대한 창조체의 의식적인 반응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145:2.10 (1630.6) 사도들은 이 설교로 큰 도움을 받았다. 그들 모두는, 왕국 복음이 민족에게가 아니라 개별존재에게 향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좀 더 잘 깨닫게 되었다.

145:2.11 (1630.7)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익숙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안식일 날의 설교에 대해서 놀랐다. 그 가르치는 것이 진정으로 권한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145:2.12 (1630.8) 예수가 말씀을 막 끝마치셨을 때, 회중 가운데에 있던 한 젊은이가 그의 말을 듣고 몹시 동요되어 격렬한 간질 증세를 나타내며 큰소리로 외쳤다. 경련이 끝나고 의식이 회복되면서, 그는 꿈을 꾸는 상태로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예수가 사람들을 조용하게 하고 그 젊은이의 손을 잡고, “그 속에서 나와라”라고 말씀하였다—그리고 그는 즉시 깨어났다.

145:2.13 (1631.1) 이 젊은이는 더러운 영이나 악마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간질병에 걸려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고통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배워왔었다. 그는 그러한 가르침을 믿었으며, 그것에 따라 자기 병에 관해 생각하고 행동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그러한 현상은 더러운 영의 현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가 이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믿었다. 그러나 예수는 이때 그의 간질병을 치유하지 않았다. 해가 진 후 그날 늦게까지는 이 사람이 실제로 치료되지 않았었다. 오순절이 지난 한참 후에 사도 요한이 예수의 행적을 마지막으로 쓰면서 소위 이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와 관련되는 모든 참조사항을 삭제시켰는데, 그러한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일이 오순절 이후로는 한 번도 다시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엄두에 두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145:2,14 (1631,2)} 이 평범한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가 회당에서의 오후 설교를 마치시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그를 기적적으로 고치셨다는 보고가 가버나움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러한 놀라운 소문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퍼져 나가게 하는 데에는 안식일이 가장 좋은 때였다. 이러한 보고는 또한 가버나움 주위의 모든 작은 마을에도 전달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다.

145:2.15 (1631.3) 예수와 12 사도들이 그들의 본부로 삼았던 세베대의 큰 집에서, 음식과 집안일은 시몬 베드로의 아내와 장모가 거의 모든 일을 맡아보았다. 베드로의 집이 세베대의 집과 가까웠으며; 예수와 그의 친구들은 회당에서 돌아가는 길에 그곳에 들렀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며칠 동안이나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예수가 이 아픈 여인을 굽어보시고 그녀의 손을 잡고 이마를 쓰다듬으시며 위로와 용기의 말을 몇 마디 하였을 즈음해서, 우연히 그녀에게서 열병이 떠나갔다. 예수는, 회당에서의 일은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는 설명을 자기 사도들에게 아직 하지 못하였다; 그 사건이 그렇게 신선하고 생생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여 있는데다가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일이 회상되어, 그들은 이 우연한 사건을 또 다른 하나의 기적으로 여겼고, 그들 중 몇몇은 재빨리 밖으로 나가 도시 전역을 통해 이 소식을 퍼뜨렸다.

145:2.16 (1631.4) 베드로의 장모인 아마타는 학질로 고생하고 있었다. 이때 그녀는 예수에 의해서 기적으로 치료된 것이 아니었다. 해가 진 후 몇시간이 지나기까지는, 그녀의

회복이 세베대의 집 정원 앞에서 발생한 비상한 사건으로
관련되어서 퍼져 나가지는 않았다.

145:2.17 (1631.5) 이적을 구하는 세대와 기적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또 다른 기적이 예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선전하기 위해 그러한 우연한 경우들을 빼지 않고 구실로
삼았었는데, 이런 일들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이다.

제 3 장. 해 질 무렵의 치료

145:3.1 (1631.6) 이 사건 많은 안식일이 끝날 무렵 예수와 그의
사도들이 저녁식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모든
가버나움과 그 주위에서는 이러한 치료(治療)의 기적
소문으로 떠들썩하였다; 병들거나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이 해가 지자마자 예수께 가거나 친구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서 갈 준비를 시작하였다. 유대의 가르침에
의하면, 신성(神性)한 안식일 동안에는 병을 고치려
찾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있었다.

145:3.2 (1632.1) 그러므로 해가 지평선(地平線)으로 떨어지기가
무섭게, 많은 고통 받는 남녀와 아이들이 벳세다에 있는
세베대의 집으로 향해 가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은 해가

자기 이웃 집 뒤편으로 넘어가자마자, 몸이 마비된 딸을 데리고 출발하였다.

145:3.3 (1632.2) 그 날 전체의 사건들이, 이 비상한 해질 무렵의 장면을 연출할 무대를 준비한 것이었다. 예수가 오후 설교에서 인용했던 본문까지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가깝게 관련되어 있었다; 그는 것처럼 전례가 없었던 힘과 설득력을 가지고 말씀했었다!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박력이 넘쳤던가! 그가 인간 설득력에는 아무런 호소를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의식과 혼에 대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였다. 그가 논리적, 법적 논쟁, 영리한 말들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의 박력 있고 직접적이고 분명하고 개인적 호소력은 듣는 이들의 가슴속을 파고들었다.

145:3.4 (1632.3) 그 안식일은 예수의 지상(地上) 일생에서, 우주의 일생에서 중대한 날이었다. 모든 지역우주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이 작은 유대 도시인 가버나움의 실제적인 네바돈의 수도였다. "증오는 두려움의 그림자이다; 복수는 비겁함의 가면이다."라고 하였던 예수의 설교의 감격적인 결론을 듣고 있던 자들은 단지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소수의 유대인들뿐만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청중들은 “사람은 악마의 자녀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이다.”라는 그의 축복의 말도 잊을 수 없었다.

145:3.5 (1632.4) 해가 진 직후에, 예수와 사도들이 아직 저녁 식사 중이었을 때, 베드로의 아내는 앞마당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문으로 나가는 도중에, 큰 무리를 이루어 모여 있는 병자들을 보았으며, 가버나움으로부터 오는 길이 예수께 치료를 받으러 오고 있는 자들로 붐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광경을 보고, 그녀가 바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알렸고, 베드로는 그것을 예수께 알렸다.

145:3.6 (1632.5) 주(主)가 세베대의 집 정문으로 나가 보았을 때, 그의 눈은 병들어 있고 시달리고 있는 인간성의 대열과 마주쳤다. 그는 거의 1,000명이나 되는 병들어 고통당하는 인간 존재들을 바라보셨는데; 적어도 그것이 그 앞에 모여 있던 사람들의 숫자였다. 거기에 나와 있던 모든 이가 고통 받는 자들은 아니었고; 그 중에는 자신들의 사랑하는 사람을 고치고자 그들을 데리고 온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145:3.7 (1632.6) 주로 자신이 신임하는 우주 관리-행정의 아들들의 오류와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러한 필사자 남녀들과 아이들의 모습이, 예수의 인간 가슴에 특별히 와 닿았으며, 이 자애로운 창조자 아들이 가진 신성한 자비심을 자극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그가 순전히 물질적인 이적의 기초 위에 영속하는 영적 운동을 절대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다. 자신의 창조자로서의 특권을 전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변함없는 정책이었다. 가나의 사건 이후에, 초자연적이거나 기적적인 것이 그의 가르침에 수반되지 않았었다; 그래도 이 고통 받는 무리들은 그의 동정심 가득한 가슴을 움직였고 그의 납득하는 애정에 강하게 호소하였다.

145:3.8 (1632.7) 앞마당에서 한 사람이 외쳤다: “주(主)여,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육신화된 한 우주의 창조자를 항상 함께 동행하던 세라핌천사, 물리통제자, 생명운반자, 중도자들로 이루어진 광대한 수행원들은 그들의 주권자의 신호가 내려지게 되면 창조적 능력을 행사하려고 자신들을

그렇게 준비하였다. 이것은, 예수의 이 세상 일생 중에서 신성한 지혜와 인간 연민이 사람의 아들의 판단 속에서 너무나 서로 얽혀있어서 아버지의 뜻에 호소하면서 그는 뒤로 물러서려 했던 그러한 순간들 중의 하나였다.

145:3.9 (1632.8) 베드로가 주(主)에게 그들의 도움을 달라는 외침을 들어달라고 간청하자, 예수는 고통 받는 군중들을 내려다보며 대답하였다: “나는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내고 그분의 왕국을 설립하러 왔다. 나는 이 시간까지 이 목적을 위하여 살아왔다. 그러므로 만약 그것이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며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려는 나의 봉헌에 거역되는 일이 아니라면, 나는 내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겠으며—그리고—” 그러나 예수의 그 다음의 말씀은 소란 때문에 들리지 않게 되었다.

145:3.10 (1633.1) 예수는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한 결정의 책임을 자기 아버지의 판정에 맡겼다. 아버지의 뜻으로부터는 명백하게 아무런 반대도 없었으며, 주(主)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예수의 개인성구현된 생각 조절자의 명령 아래에서 일하는 천상의 개인성들이 힘차게 움직였다. 수많은 수행원들이 고통 받는 필사자들의 복잡한 군중

속으로 내려왔고, 순식간에 683명의 남녀들과 아이들이 모두가 한꺼번에 그들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과 다른 물질적인 불편함 들이 완전히 치료되었다. 그러한 광경은 이 세상에서는 그 날 이전에 전혀 목격된 바가 없었으며, 그 후로도 그러하였다. 그리고 이 창조적인 치료의 물결에 참석했던 우리들에게, 그것은 진정으로 전율이 넘치는 광경이었다.

145:3.11 (1633.2) 그러나 이러한 갑작스럽고 기대하지 않았던 초자연적인 치료 때문에 놀랐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은 바로 예수였다. 그의 인간 관심과 동정심이 그의 앞에 펼쳐있는 고통의 광경에 집중되는 순간, 그는 어떤 특정한 조건들과 특정한 환경들 아래에서는 창조자 아들의 창조적 특권들의 시간적 요소의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자신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의 경고를 자신의 인간 마음속에서 잠시 잊고 있었다. 예수는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아버지의 뜻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이러한 고통 받는 필사자들을 온전하게 해주고 싶었다. 예수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는 그 당시의 그러한 창조 에너지의 행위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즉시 판단하였으며, 그래서

그러한 결정으로—병을 고쳐주고 싶어 하는 예수
의 표현—창조적인 행위가 일어났다. 창조자 아들이 원하는
것이었고, 그의 아버지의 뜻이 존재하였다. 예수의 나머지
지상 일생에서 그러한 단체적인 육신의 치료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145:3.12 (1633.3) 기대했던 대로, 가버나움의 벳세다에서 일어난
해질 무렵의 치료의 명성이 갈릴리와 유다 전역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지역으로까지 퍼졌다. 다시 한 번
헤롯이 두려워하게 되어, 예수의 일과 가르침에 대한
보고와 그가 과연 이전의 나사렛 목수인지 아니면 죽었던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감시자를 파견하였다.

145:3.13 (1633.4) 의도하지 않았던 육신의 병을 고친 실증이 주요
원인이 되어, 그 이후의 남아있는 지상 일생을 통하여
예수는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의사의 역할도 맡게 되었다.
그가 가르침을 계속하였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의
대부분의 개인적 일은 병들고 고통 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러는 동안 그의 사도들이 대중을
위한 설교와 신도들에 대한 세례를 맡았었다.

145:3.14 (1633.5) 그러나 이 날 해질 무렵의 신성한 에너지가 실제 실증되었을 때, 초자연적으로 혹은 창조적으로 육체적 치료를 받은 자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범한 자비의 현시활동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영적으로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으로 이 육체적 사명활동에 의하여 교화되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간이- 무시된 놀라운 창조적 치료의 돌발적 현상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가슴 안에서 향상되지는 않았다.

145:3.15 (1633.6) 치유의 이적이 예수의 지상 임무 중에서 수시로 일어났지만, 그것은 왕국 선포에 있어서 그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 거의 무제한적인 창조 특권을 가지신 신성한 존재가 이 세상에 거주하심으로써 전례에 없었던 신성한 자비와 인간 동정심의 관계적-연합으로 인하여 그것들이 부수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편견을-일으키는 홍보를 제공했고 또한 바라지 않던 나쁜 평판도 잘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소위 기적이라고 불린 그것들은 예수께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제 4 장. 그날 밤 이후

145:4.1 (1634.1)

이 굉장한 병을 고친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밤 내내, 기쁨에 차고 행복한 군중들이 세베대의 집을 가득 채웠고, 예수의 사도들은 감정적인 열광이 최고조에 올라가 있었다. 인간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이 아마도 그들이 예수와 관계적-연합한 모든 중요한 날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었다. 그들의 희망이 그렇게 자신감에 찬 기대감으로 물결친 적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그들이 아직 사마리아의 경계 안에 있을 때인 바로 며칠 전에, 예수가 왕국이 힘을 가지고 선포되어질 그 때가 왔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였으며, 이제 그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 만약 이러한 놀라운 치유하는 힘의 현시활동이 바로 그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면, 앞으로 무엇이 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기대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율하였다. 예수의 신성에 대한 그들의 꾸물거렸던 의심이 떨쳐지게 되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황홀감의 절정에 빠져 있었다.

145:4.2 (1634.2)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찾았을 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주(主)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 매우 당황하였다. 각양각색의 병에서 완쾌함을 받은 이

남녀들과 아이들은 예수께 감사를 표하려고 밤늦게까지 서성이며 그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렸다. 사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主)의 행위를 납득할 수 없었고 그는 계속해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가 계속해서 자리를 비우시지만 않았다면, 그들의 기쁨은 충만하고 완전하였을 것이다. 예수가 그들에게 돌아왔을 때는 매우 늦은 시간이었고, 병을 고치는 에피소드에서의 수혜자들은 실천적으로 모두 돌아간 후였다. 예수가 그를 보러 남아 있던 다른 사람들과 12사도들의 축하와 찬미를 무시하면서 단지 이렇게 말씀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육신의 병을 고친 능력으로 인하여 기쁨을 향유하지 말고, 오히려 혼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기쁨을 향유하라.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하니 내일을 위해 이제 모두 가서 쉬도록 하자.”

145:4.3 (1634.3) 12사도들은 다시 한 번 실망하였고, 갈피를 잡을 수 없었으며, 이제 가슴이-슬퍼진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어갔다; 쌍둥이 형제를 제외하고는 그들 모두가 그날 밤 잠을 설쳤다. 주(主)가 사도들의 혼을 북돋아 주시고 가슴을 기쁘게 해주기가 무섭게, 다시 곧 그들의 희망을 산산조각으로 부수고 그들의 용기와 열성의 기반을 전부

뒤엎으시는 것 같았다. 이들 어리둥절한 어부들이 각자의 눈을 들여다보며 단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우리는 그를 납득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하는 것이었다.

제 5 장. 일요일 이른 아침

^{145:5.1 (1634.4)} 예수도 토요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는 세상이 육신의 고통으로 가득 차있으며, 물질적인 어려움들로 넘쳐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자신이 병자나 고통 받는 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고, 그래서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적 왕국을 설립하려는 자신의 사명은, 육체적 일에 대한 사명활동으로 방해될 수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종속되어지는 헌신으로 될 수밖에 없는 처지의 그 커다란 위험을 심사숙고하였다. 그 날 밤 동안 예수의 필사자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생각들과 비슷한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날이 새기 훨씬 이전인 일요일 새벽에 그가 즐겨 찾아가는 아버지와의 교제의 장소로 혼자서 가셨다. 그 날 이른 아침 예수의 기도의 주제는, 필사자의 고통 받는 현존 앞에서 자기에 향하는 그러한 호소 때문에, 자신의 인간적 동정심이, 신성한 자비와 합쳐지면서, 영적인 것이 소홀해지는

육체적 사명활동에 자신의 모든 시간들이 점령되지 않도록, 지혜와 판단력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일을 전부 소홀히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또한 영적 가르침과 종교적 훈련이라는 더욱 중요한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아셨다.

145:5.2 (1635.1) 예수가 언덕으로 그렇게 여러 번 기도하러 가셨던 것은, 그의 개인적 헌신에 적합한 독립된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145:5.3 (1635.2) 베드로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가 기도하러 떠나신 직후에 야고보와 요한을 깨워 함께 주(主)를 찾아 나섰다. 한 시간 이상 찾아 헤맨 후에, 그들이 예수를 발견하였고 그의 이상한 행위에 대한 이유를 말해 달라고 그에게 간청하였다. 그들은 왜 모든 사람들이 기쁨에 넘쳤고 사도들이 것처럼 기쁨을 향유하는 치유의 영의 막강한 분출 때문에 그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알고 싶어 하였다.

145:5.4 (1635.3) 예수는 4시간 이상 동안,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이 3명의 사도들에게 설명하려고 애쓰셨다. 예수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러한 현시활동들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예수는 자신이 기도하러 온 이유를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는 아버지의 왕국이 왜 이적을-행함이나 물리적 치유 위에 세워질 수 없는지 실제 이유를 자신의 개인적 연관-동료들에게 명백하게 알리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다.

145:5.5 (1635.4) 그러는 동안, 다른 고통 받는 혼들의 무리들과 많은 호기심에 찬 사람들이 일요일 아침 일찍 세베대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시끄럽게 요구하였다. 안드레와 사도들은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시몬 젤로떼가 군중들에게 말하는 동안 안드레와 몇 명의 사도들이 예수를 찾으러 갔다. 안드레는 세 사람과 함께 있는 예수를 만나자, 이렇게 말하였다: "주(主)여, 왜 우리만 홀로 무리들과 있게 내버려두십니까?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전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신의 권능으로 인하여 가깝고 먼 곳으로부터 온 자들이 지금도 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을 고치시러 저희와 함께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145:5,6 (1635:5) 예수가 이 말을 듣고 대답하였다: “안드레야, 땅에서의 나의 사명은 아버지를 계시하는 것이며, 나의 메시지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선포라는 것을 내가 너희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더냐? 너희는 내가 호기심을 충족되게 하고 그리고 표적과 이적을 찾는 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나의 일을 버리는 그런 나와 함께 있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이 사람들과 이제까지 여러 달을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들이 왕국의 좋은 소식을 들으러 군중으로 모인 것이 아니었더냐? 어째서 지금은 그들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찾아오고 있단 말이냐? 그것은 그들이 혼의 구원을 위한 영적 진리를 받아들인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치료 때문이 아니더냐? 비범한 현시활동들 때문에 우리에게 나올 때, 그들 대부분은 진리와 구원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물질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들의 육체적인 병의 치유를 추구하려고 온 것이다.

“이제까지 나는 가버나움에 있었고, 회당에서든지 해변에서든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에게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슴을 가진 자들에게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해 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 돌아가서 이러한 호기심 있는 자들의 비위를 맞추고, 영적이 아닌 육체적인 일들에 사명활동하게 되는 것은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돌보도록 임명하였지만, 나는 나의 가르침을 제쳐놓고 병을 고치는 일에 점거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안드레야,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 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믿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자신들의 해방을 기쁨으로 향유하고 말하고, 갈릴리의 다른 도시들로 떠날 준비를 해라. 거기에는 왕국의 기쁜 소식을 전파할 준비가 이미 무르익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러면 가서 우리가 조속히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 동안 나는 여기서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

예수가 말씀을 끝내시자, 안드레와 그의 동료 사도들은 슬픈 가슴으로 세베대의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가 지도한 대로, 모여 있는 무리들을 해산시키고 신속하게 여행 준비를 끝냈다. 그렇게 해서 서기 28년 1월 18일 일요일 오후에, 예수와 사도들은 갈릴리 도시들에서의 그들의 실제로 최초의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설교 여행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 첫 번 여행 중에 많은 도시들에서 왕국 복음을 전했지만, 나사렛에는 들리지 않았다.

145:5.9 (1636.2) 그 일요일 오후, 예수와 사도들이 림몬으로 막 떠난 후에, 그의 동생들인 야고보와 유다가 그를 만나러 세베대의 집으로 왔다. 그 날 정오경에 유다가 그의 형 야고보를 찾아가서 함께 예수를 보러 가자고 청했었다. 야고보가 유다와 함께 갈 것에 동의했을 즈음에 예수는 이미 떠나신 후였다.

145:5.10 (1636.3) 사도들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굉장한 흥미 있는 일들을 뒤에 두고 떠나기 싫었다. 베드로는 천 명이 넘는 신자들이 왕국으로 들어오는 세례를 받았다고 계산했다. 예수는 그들의 말을 참을성을 가지고 들었으나, 돌아가는 것은 거절하였다. 침묵이 잠시 동안 흐른 후에, 도마가 동료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자!

주(主)의 말씀이 떨어졌다.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대한 신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은 확실한데, 그것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위한 그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않으시는 선생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못해서 그들은 갈릴리의 다른 도시들에서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떠났다.

제 146 편 갈릴리의 첫 번째 설교 여행

146:0.1 (1637.1) 갈릴리에서의 첫 번째 대중 설교 여행은 서기 28년 1월 18일 일요일에 시작되어 3월 17일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것을 끝으로 약 두 달 동안 계속되었다. 이 여행에서 예수와 12 사도들은 이전의 요한의 사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림몬, 요타파타, 라마, 스블론, 이론, 케자리아, 코라진, 매돈, 가나, 나인, 엔도르 등지에서 복음을 설교하였으며,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은 이들 도시들에서 체재하면서 가르쳤고, 한편 많은 작은 도시들에서는 지나가면서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146:0.2 (1637.2) 예수가 자신의 연관-동료들에게 거리낌 없이 설교하도록 허락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여행에서 그는 단지 세 가지의 주의를 주었다; 그는 그들에게 나사렛을 멀리하라는 것과 가버나움과 티베리아스를 지나칠 때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사도들은 그들이 자유로이 설교할 수 있고 제약 없이 가르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함을 얻었으며, 복음을 설교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에 큰 열성과 기쁨을 가지고 헌신하였다.

제 1 장. 림몬에서의 설교

146:1.1 (1637.3) 소도시인 림몬은 한때 바빌론의 대기의 하느님인 람만을 경배하는 데에 전념했었던 적이 있었다. 많은 초기 바빌론 사람과 후대 조로아스터 교도들의 가르침들에는 여전히 림몬 자손들의 믿음들을 포옹하고 있었다. 따라서 예수와 24 명의 추종자들은 이러한 옛날 믿음과 왕국의 새 복음에 대한 차이점을 명백하게 설명해주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베드로가 그의 초기 생애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훌륭한 설교들 중의 하나인, "아론과 금송아지"에 대한 설교를 이곳에서 하였다.

146:1.2 (1637.4) 많은 림몬 시민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중에 그들 형제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 하나의 독자적인 생애의 짧은 기간 동안에 자연 경배자들을 영적 이상(理想)을 찬미하는 충분한 동료관계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146:1.3 (1637.5) 바빌론 사람들의 좀 더 좋은 점과 페르시아인들의 많은 관념들, 밝음과 어두움, 선과 악, 시간과 영원이라는 것들이 나중에 소위 그리스도교라고 불리게 된 교리들과 합쳐졌다. 그러한 사상들의 개입은 좀 더 빠르게 근동 지역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눈에 보이거나 물질적인 모든 사물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원형틀, 또는 관념적 영에 대한 많은 플라톤의 이론들이 포함된 것이, 후에 필로에 의해 히브리 신학에 적용되었던 것처럼, 바울의 그리스도교 가르침들을 서방의 그리스인들에게 좀 더 쉽게 받아들여지도록 해주었다.

146:1.4 (1637.6) 토단이 처음으로 왕국의 복음을 알게 되었던 곳이 림몬이었는데, 그는 나중에 이 메시지를 메소포타미아와 그 밖으로까지 전달하였다. 그는 유프라테스 너머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설교했던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제 2 장. 요타파타에서

146:2.1 (1638.1) 요타파타의 일반 사람들은 예수와 그의 사도들의 말을 기쁘게 들었으며, 또한 많은 이들이 그 왕국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한편, 그들이 이 작은 도시에서 체류하던 둘째 날 밤에 예수가 24 명들에게 주었던 강연은, 이 요타파타에서의 사명활동을 다른 곳과 구별되는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 나다니엘이 마음속에서 기도와 감사와 경배에 관한 주(主)의 가르침에 대하여 혼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에 대하여 좀 더 장시간 설명하였다. 현대 용어로 요약해보자면, 이 강연은 다음의 점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146:2.2 (1638.2) 1. 사람의 가슴 속에서 의식적이고도 끈질기게 사악한 불의를 생각하면, 사람과 조물주사이에 영적 교통의 순환회로와 인간 혼이 기도로 연결되는 것을 단계적으로 파괴한다. 자연히 하느님은 자기 자녀의 탄원을 듣고 계시지만, 인간의 가슴이 사악한 불의의 개념을 자의적이고 그리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담고 있으면, 이 세상의 자녀와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 사이의 개인적 교제는 단계적으로 연이어서 없어진다.

146:2.3 (1638.3)

2. 이미 알려져 있고 확립된 하느님의 법들과 일치하지 않는 기도는 파라다이스 신(神)들에게는 하나의 혐오스러운 것이 된다. 만약 하느님들께서 영적, 마음적, 물질적인 법들에 의거하여 자신들의 창조에 말씀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창조체들의 그러한 고의적이고 의식적인 오만한 행위는, 그러한 법을 지키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필사자들의 개인적 탄원들을 듣고 있던 영적 개인성들의 귀를 떠나가게 한다. 예수는 자기 사도들에게 스가랴 예언서로부터 글을 인용하였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어깨를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그렇다. 그들이 그 가슴을 돌과 같이 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나의 영으로 보낸 나의 법과 말들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의 악한 생각의 결과가 그들의 죄있는 머리 위로 큰 천벌을 불렀다. 그들이 자비를 구하는 소리가 들려 왔으나, 거기에는 그것을 들을 어떤 귀도 열려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지혜로운 사람의 속담을 인용하였다: “신성한 법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그의 기도까지도 혐오스러운 것이 되리라.”

146:2.4 (1638.4)

3. 하느님-사람간의 교통의 통로에서 인간 쪽을 열어 놓자마자, 필사자들은 창조 세상으로 언제나-흐르는

신성한 사명활동의 흐름을 즉각적으로 가능하게 만든다. 사람이 그들의 가슴속에서 하느님의 영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러한 체험의 본질은 바로 하느님께서 동시에 사람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한다. 죄의 사함까지도 이와 똑같은 틀림없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였지만, 그러한 용서는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용서하기 전까지는 너희의 개인적인 종교적 체험 속에서 이어질 수 없다. 하느님의 사실적인 용서는, 너희가 너희의 형제를 용서하는 것에 의해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체험 안에서 그것은 정확하게 그렇게 조건이 갖추어진다. 그리고 신성한 그리고 인간적 용서가 동조한다는 이 사실은, 예수가 사도들에게 가르쳤던 기도 속에서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고 함께 연결되어져 있었다.

146:2.5 (1638.5) 4. 우주 안에는 공의의 기본적인 법칙이 있으며, 자비가 이것을 피해 갈 아무런 힘이 없다. 시간과 공간의 영역의, 철저하게 이기적인 창조체는 파라다이스의 사심-없는 영광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조차도, 생존하기를 선택하지 않는 어떤 필사 창조체에게도 영원한 생존의 구원을 강요할 수 없다.

자비는 증여에서의 엄청난 허용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결국, 자비와 통합된 사랑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공의의 명령들이 있다. 예수는 다시 히브리 성서에서 인용하였다: “내가 불렀지만 너희가 듣기를 거부하였고; 내가 손을 폈지만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너희가 나의 모든 조언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나를 찾을 때에 이러한 반역적인 태도로 인하여 대답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 생명의 길을 배척하였으므로, 너희가 고통을 당할 때에 나를 간곡히 구하여도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146:2,6 (1639.1) 5. 자비를 받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비를 내보여야만 한다; 심판을 하지 않아야 너희가 심판 받지 않게 된다. 너희가 그것으로 남을 심판하는 그 영으로, 너희가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비는 우주의 공정성을 전적으로 파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마지막에는 참인 것이 증명될 것이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막는 자는 누구나, 그 역시 언젠가는 도움을 부르짖을 것이고, 그 때에 아무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모든 기도의 진지함은 그것을 듣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모든 탄원의 영적 지혜와 우주적 일관성이 응답의 시기, 방식,

그리고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신의 무지하고 경험없는 자녀들의 어리석은 기도들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대답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러한 터무니없는 탄원을 드리면서 많은 기쁨과 실제 혼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146:2.7 (1639.2) 6.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전적으로 봉헌하게 되면, 너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충만하게 부합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그의 광대한 우주에 두루 언제까지나 현시되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청원에 대한 대답은 나타날 것이다. 진실한 자녀가 원하고 무한한 아버지께서 뜻하는 것들은 존재한다. 그러한 기도는 대답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 없으며, 그리고 다른 어떤 종류의 청원도 도저히 충분하게 응답될 수는 없다.

146:2.8 (1639.3) 7. 정의로운 자의 외침은 하느님의 자녀의 신앙 활동이며, 이것은 선함, 진리, 그리고 자비로 가득 찬 아버지의 창고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좋은 선물들은 아들의 접근을 그리고 개인적 전용이 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있어 왔다. 기도는 사람을 향한

신성한 태도를 변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변함없는 아버지를 향한 사람의 태도를 변하게 한다. 기도의 동기가 신성한 귀에 이르는 통행권을 주는 것이지, 기도하는 자의 사회적, 경제적, 또는 외관상의 종교적 지위가 통행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

146:2.9 (1639.4) 8. 기도가 시간의 단축이나 혹은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기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기도는 웅대해지는 자아를 위한 것이거나 자기 동료들보다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기법으로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혼은 진정한 의미의 언어로 기도할 수 없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의 최극의 기쁨이 하느님의 성격 안에 있게 하라, 그러면 그가 네 가슴의 진지한 소원을 너희에게 분명히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행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참작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146:2.10 (1639.5) 9.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으며; 그러므로 만약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에 관하여 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나의 이름으로 요청해라, 그러면 내가 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너희의 실제 필요와 소원들에 맞추어 너희를 위하여 대신 탄원하여 줄 것이다.” 기도를 함에 있어서 자아-중심적이 되려는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너희 형제들의 영적 향상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라. 물질적인 기도를 피하고; 영 안에서 그리고 영의 풍성한 선물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146:2.11 (1639.6) 10. 너희가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가 이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지능적인 사명활동을 대신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의 가족, 친구, 동료들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랑이 넘치는 기도를 해라. “그러나 기도할 때에, 나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너희 안에 거하는 영(靈)이 너를 움직여, 영들의 아버지와 맺는 내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그러한 탄원들을 말하게 할 것이다.”

146:2.12 (1640.1)

11. 많은 호소가 단지 문제에 있을 때에만 기도한다. 그러한 실천 관행은 경솔하고 잘못 인도된 것이다. 너희가 곤란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너희는 또한 너희의 혼과 함께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도 너희의 아버지께 자녀로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너희의 실제 탄원은 항상 남 몰래 드리도록 해라. 다른 사람들이 너희의 개인적 기도를 듣게 하지 마라. 감사함의 기도는 경배자의 집단에게 적절하지만, 혼의 기도는 개인적 문제이다. 모든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기도의 형식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146:2.13 (1640.2)

12.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늘의 왕국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여야만 할 것이다. 히브리 성서들에 기록된 모든 기도들 가운데에서, 그는 시편 기자들의 기도들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으로 논평하였다: "하느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가슴을 창조하고, 내 안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은밀한 죄들로부터 씻어 주시며, 당신의 하인을 외람된 범죄로부터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는 경솔하고 죄를

범하는 말투로 기도하는 것에 관련하여 매우 길게 이야기하면서 다음의 글들을 인용하였다: “오, 주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인간의 혀는 사람이 거의 다스리기 힘든 신체의 일부이지만, 내주하는 영만이 이 견잡을 수 없는 몸의 일부를 부드러운 관용의 음성과 자비의 영감 어린 사명활동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고 예수가 말씀하였다.

146:2.14 (1640.3) 13. 예수는 땅에서 사는 일생의 여로에서 신성한 안내를 구하기 위한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탄원하는 기도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실체 안에서 이것은 신성한 지혜를 탄원하는 기도를 의미한다. 예수는 결코 기도로 인간의 지식과 특별한 기술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기도가 사람이 그 신성한 영의 현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능력이 커지는 것의 한 요소가 된다고 가르치셨다. 예수가 연관-동료들에게 영과 진리 속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깨우침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 전심을 다하여 지능적으로, 열심히 그리고 확고하게 드리는 기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146:2.15 (1640.4)

14. 예수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화려한 문체를 사용한 반복, 유창한 말, 금식, 참회, 희생물이 기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신자들에게 감사함을 통하여 진정한 경배로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라고 간곡히 권하였다. 예수는 자신의 추종자들의 기도와 경배에서 감사의 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한탄하였다. 그는 이 경우에 관해 성서에서 글을 인용하였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고자의 이름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며, 매일 아침마다 그의 자애로움을 인정하며, 매일 밤마다 그의 진실하심을 인정하는 것은 유익한 일인데, 이는 하느님께서 그가 일을 통하여 나를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나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릴 것이다.”

146:2.16 (1640.5)

15. 그러고 나서 예수가 말씀하였다: “너희의 일상적인 필요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일어나는 문제들로 너무 염려하지 말라, 또한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 너희의 진지한 감사의 영과 함께, 기도와 간청으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

펼쳐지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그는 성서에서 이렇게 인용하였다: “내가 노래로 하느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느님을 광대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146:2,17 (1641.1) 16. 예수는 추종자들에게, 그들이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렸을 때는, 내주하고 있는 영이 듣고 있는 혼에게 말하는 더 좋은 기회를 여유롭게 제공하도록, 고요한 접수성 안에서 한동안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아버지의 영은 사람의 마음이 진정한 경배의 자세를 취할 때 사람에게 이야기하기가 가장 좋다. 우리는 아버지의 내주 하는 영의 도움으로 그리고 진리의 사명활동을 통한 인간 마음의 광채로 하느님께 경배를 드린다. 예수는, 경배가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를 받는 분을 점점 더 닮아가도록 해준다고 가르쳤다. 경배는 유한자가 무한자의 현존으로 점점 더 다가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그러한 변환하는 체험이다.

146:2.18 (1641.2) 예수는 사람과 하느님과의 교통에 관한 다른 많은 진리들을 사도들에게 말씀하였지만, 그들 중 많은 이가 그의 가르침을 충분하게 품지는 못하였다.

제 3 장. 라마에 들리심

146:3.1 (1641.3) 예수는 라마에서 연로(年老)한 그리스 철학자와 기억에 남을 만한 토의를 하였는데, 그 철학자는 과학과 철학만으로도 인간 체험의 필요성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가르쳤었다. 예수가 이 그리스 선생의 말에 인내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으며, 그의 말의 많은 부분들이 진리임을 인정하였지만, 그가 말을 마치자, 예수는 단지 그가 인간 실존의 토의에서 “어떻게, 왜, 어디로”를 설명하는 것을 빠뜨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네가 끝낸 지점에서 우리는 시작한다. 종교는 마음 혼자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거나 충분히 헤아릴 수 없는 영적 실체들을 다루는, 사람의 혼에 대한 계시이다. 지적(知的)인 분투가 생명의 사실들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왕국 복음은 존재에 관한 진리들을 밝혀준다. 너는 진리에 대한 물질적인 그림자들을 언급하였다; 이제 내가 필사 실존의 물질적인 사실들에 대한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간의 그림자들을 벗어버린,

영원하고 영적 실체들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들어보겠느냐?” 한 시간 이상 동안 예수가 이 그리스인에게 왕국 복음의 구원의 진리들을 가르치셨다. 그 연로한 철학자는 주(主)의 접근 방법에 쉽게 따라왔으며, 진정으로 정직한 본심의 자세로 구원의 복음을 빨리 믿었다.

146:3.2 (1641.4) 사도들은 예수가 공공연하게 그리스인의 많은 주장들에 찬성하는 태도 때문에 약간 당황하였지만, 예수는 나중에 사적(私的)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그리스인의 철학에 관용을 베풀었다고 해서 놀라지 마라. 참되고 순수한 내적 확신은 외부적인 분석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한 진리는 정직한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화내지 않는다. 편협함은 자기의 믿음에 담겨있는 진실함을 스스로 은밀하게 의심하고 있음을 감싸 감추는 가면이라는 점을 너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완전한 자신감이 있을 때에는, 그는 어떤 경우에도 이웃의 태도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겪지 않는다. 용기는 자신이 믿는다고 고백한 그 일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정직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진실한 사람들은 자신의 참된 신념과 숭고한 이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146:3.3 (1641.5) 라마에서 머물던 둘째 날 저녁에 도마가 예수께 물었다: “주(主)여, 어떻게 해야 새 신도들이 당신의 가르침 안에서 이러한 왕국 복음의 진리를 실제로 알고 또 실제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146:3.4 (1641.6) 그리고 예수가 도마에게 대답하였다: “너희가 아버지의 왕국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과, 왕국의 자녀들로서 영원히 생존할 것에 대한 너희의 확신은 전적으로 너희의 개인적 체험—진리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문제이다. 영적 확신은 신성한 진리의 영원한 실체들 안에서의 너희의 개인적 종교 체험과 동등한 것이며, 또한 한편으로는 진리의 실체에 대한 너희의 지적 납득과 너희의 영적 신앙을 합하고 그리고는 너희의 솔직한 의심들을 뺀 것과 똑 같다.

146:3.5 (1642.1) “아들은 자연적으로 아버지의 생명을 자질로서 부여받는다. 너희가 아버지의 살아있는 영을 자질로서 부여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의 선물인, 아버지의 살아 있는 영과 정체성이

확인되기 때문에, 너희 생명은 육신을 가진 물질 세상에서 살아남는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오기 이전에도 이러한 생명을 살아 왔는데, 이제 나의 말을 믿음으로 인하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나면, 그가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그의 영을 보내실 것이다.

146:3.6 (1642.2)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서 활동하는 그 신성한 영을 볼 수 없기는 하지만 너희에게는, 너희 혼이 가진 힘의 통제을, 이렇게 깃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의 가르침과 인도에 네가 복종하고 있는 그 정도를 알아보는 실천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동료들에 대한 너희의 사랑의 정도이다. 아버지의 이 영은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어 갖고 있으며, 그것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은 어김없이 거룩한 경배로 인도하고 자신의 동료들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한다. 처음에는 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너희가 아버지의 내주 하는 현존의 인도를 좀 더 의식하게 되어,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만; 곧 진리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질 것이며,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에게 진리의 말을 하는 것과 같이,

그것이 사람들 안에 거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은 너희 혼들의 영적 자질을 증명하고 있고, 또한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그것은 틀림없이 너희 안에 거하는 아버지의 현존, 너희의 영을 증명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지금 일부의 사람들 안에서 거주하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 안에 거하면서 너희에게 너희가 실체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말해 줄 것이다.

146:3.7 (1642.3) “이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세상의 모든 자녀마다. 결국에는 하느님의 뜻을 알 것이며,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자는 언제까지나 살 것이다. 너희에게는 이 세상 일생으로부터 영원한 영토로 가는 길이 평이하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길이고, 그것은 항상 있어 왔으며, 그 길을 새롭고 생생하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왔다. 왕국에 들어오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그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들 대부분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후에, 너희가 현재의 체험들을 회고해 볼 수 있을 때에,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46:3.8 (1642.4) 이러한 축복의 말들을 들었던 모든 이들은 기쁨이 넘쳤다. 의로운 자들의 생존에 관한 유대인의 가르침들은 혼돈스럽고 불확실한 것들이었으며, 예수의 추종자들은 진실한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존으로의 확신에 대한 확고하고 긍정적인 이러한 말들을 듣고 신선함과 영감을 갖게 되었다.

146:3.9 (1642.5) 사도들은 설교하고 신도에게 세례 주는 일을 계속하면서, 한편으로는 집집마다 방문하는 실천을 지켜나갔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병든 자와 고통 받는 자에게 사명활동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예수의 사도 각자가 요한의 사도 한 사람씩을 연관-동료로 동반하게 되어, 그들의 사도 조직이 확대되었다; 아브너는 안드레의 함께 일하는 자로 일하였고, 이 방식은 그들이 다음 유월절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146:3.10 (1642.6) 스블론 체류 기간에 있었던 예수의 특별한 교훈은 주로 왕국의 상호간의 의무들에 대해 좀 더 깊이가 있는 토론과, 사회적 종교 의무에서의 친목과 개인적 종교 체험 간의 차이점들을 분명하게 해주려는 포용하는

가르침이었다. 이것은 주(主)가 종교의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 언급하였던, 몇 번 안 되는 경우들 중의 하나였다. 그의 지상 일생 전부를 통하여, 예수는 자기 추종자들에게 종교의 사회적인 면에 관해서는 거의 교훈을 준 적이 없었다.

146:3.11 (1643.1)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이방인이라고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스블론에는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으며, 그들은 예수가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친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실제로 예수를 믿는 자는 몇 사람 없었다.

제 4 장. 아이론에서의 복음

146:4.1 (1643.2) 갈릴리와 유대 지방의 많은 다른 작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론에도 회당이 있었는데, 이러한 회당들에서 안식일 설교를 하는 것은 예수의 초기 사명활동 기간 동안 그에게 하나의 관습처럼 되어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그가 아침 봉사예배의 설교를 맡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중의 하나가 오후에 설교하였다. 또한 예수와 사도들은 회당의 주중 저녁 모임에서도 자주 가르치고 설교하였다. 예수에 대한 예루살렘 종교

영도자들의 반목이 점점 더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도시 외곽에 있는 회당의 일에는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았다. 예수의 대중 사명활동으로 인하여 예수에 반대하는 정서가 이처럼 폭넓게 퍼질 수 있어서, 예수의 가르침이 모든 회당에서 금지 당했던 것은 더 나중이 가서였다. 이 당시에는 갈릴리와 유대 지방의 모든 회당들이 그에게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146:4.2 (1643.3) 아이론은 그 당시에 상당한 양의 광물질을 생산하는 광산들의 소재지였으며, 예수는 광부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론에 머무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광산에서 보내셨다. 사도들이 가정을 방문하고 공공 장소에서 설교하는 동안, 예수는 광산 지하에서 광부들과 함께 일하였다. 병의 치유자로서의 예수의 명성이 이 외딴 동네에까지도 퍼져 있었고, 많은 병든 자들과 고난당하는 자들이 그의 손에 도움을 얻으려고 그를 찾아 왔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치유 사명활동으로 크게 혜택을 입었다. 이 경우들 중에서 문둥병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主)는 절대로 기적을 통하여 병을 치유하지 않았다.

이론에서의 셋째 날 늦은 오후에, 예수가 광산으로부터 그의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좁은 골목길을 우연히 통과하게 되었다. 그가 한 문둥병자의 지저분한 오두막집에 가까이 왔을 때, 병을 치유하는 사람으로서의 명성을 들은 이 고통당하는 자는 예수가 자기 집 문 앞을 지나가시자, 그에게 감히 다가가 꿇어 엎드려 탄원하였다: “주님,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의 메시지를 저는 들어왔으며, 제가 깨끗케 될 수만 있다면, 저도 그 왕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문둥병자들은 회당에 참석하거나 대중 경배에 참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방법으로 말하였던 것이다.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문둥병에서 깨끗케 되지 않고는, 절대로 다가오는 왕국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예수는 고난당하는 그를 보셨고 그러한 신앙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인간 가슴이 감동되었고 신성한 마음이 연민으로 움직였다. 예수가 그를 바라보자 그 사람은 고개를 숙여 경배하였다. 그러자 주(主)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면서 말씀하였다: “내가 원하니—깨끗해져라.” 그러자 즉시로 그가 치료되었고; 문둥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146:4.4 (1643.5)

예수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명령하였다: “누구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가서 네 몸을 사제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케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제물을 드려서 저희에게 증명해라.”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가 지시한대로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는 온 동네에 다니면서 예수가 자기 문둥병을 고쳤다고 선전하기 시작하였으며,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의 문둥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가 문둥병으로부터 깨끗케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예수가 그에게 사제에 가라고 한 훈계를 그는 듣지 않았다. 그가 예수가 자기를 고쳤다는 소식을 온 사방에 퍼뜨린 결과로 주(主)에게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주(主)는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그 동네를 떠났다. 예수가 다시는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지지 않았지만, 광산 근처의 교외에서 이틀을 더 남아 있으면서 신도가 된 광부들에게 왕국 복음에 관하여 좀 더 가르침을 베풀었다.

146:4.5 (1644.1)

문둥병자를 고친 것이 이때까지에서 예수가 의도적이며 고의적으로 행하였던 소위 말하는 첫 번째 기적이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실제적인 문둥병자였다.

146:4.6 (1644.2) 그들은 이론에서부터 기스칼라로 가서 이틀 동안 복음을 전파한 후, 코라진으로 출발하였으며, 거기에서 그들은 거의 일주일 동안 기쁜 소식을 전하였지만; 코라진에서는 많은 신도들이 그 왕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예수가 가르치셨던 어떤 곳에서도 이곳처럼 그의 메시지가 개괄적인 거절을 당했던 적은 없었다. 코라진에서의 체류는 대부분의 사도들의 사기를 꺾어 놓았으며, 안드레와 아브너 자기 연관-동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해서 조용하게 가버나움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매돈 마을로 갔는데, 그곳 역시 거의 다름이 없었다. 모든 사도들의 마음속에서는, 자기들이 최근에 방문했던 마을에서 자신들이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실패하였던 이유는, 예수가 치유된 병자로 하여금 그 자신에 대해 말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는 관념이 만연했다. 예수가 또 다른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도록 그의 능력을 현시하기를 그들은 얼마나 바랐던가! 그러나 주(主)는 그들의 열렬한 간청에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제 5 장. 가나로 돌아옴

146:5.1 (1644.3) 사도 집단은 예수가 “우리가 내일 가나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자, 매우 즐거운 분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가나에서는, 그곳에서 예수가 잘 알려져 있었으므로, 그들이 크게 공감하는 청중을 가질 것이라 알고 있었다. 그들이 사람들을 왕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던 셋째 날에, 가버나움의 유명 인사인 타이투스가 가나에 도착하였는데, 그는 아직 믿음이 부분적인 자였고, 그의 아들이 병들어 위독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는 예수가 가나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러 서둘러 그곳에 왔다. 가버나움의 신도들은 예수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다.

146:5.2 (1644.4) 이 유명 인사는 가나에 예수가 계신 곳을 알아내자, 그에게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서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였다. 사도들이 숨을 죽이고 기대감에 차서 옆에 서 있는 동안, 예수는 병든 아들의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였다: “얼마나 더 오래 너희에게 참아야 하는가? 하느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지만, 너희는 표적과 이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러자 이 유명 인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예수께 간청하였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들이 죽기 전에 가 주십시오.

제가 떠날 때, 그 아이는 거의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가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침묵 속에서 명상을 하다가
갑자기 말씀하기를, “집으로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타이투스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서둘러 돌아갔다. 그가 돌아가는 도중에 그의 하인들이
그를 만나러 나와서 말하기를, “기쁨을 향유
하십시오—당신의 아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그가
살았습니다.” 그 때 타이투스가 그들에게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를 묻자, 종들이 대답하기를, “어제 제 칠 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가 “네 아들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였던
시간이라는 것을 회상하였다. 그때 이후로 타이투스는
전심을 다 바쳐 믿었고, 그의 온 가족들도 또한 믿게
되었다. 이 아이는 왕국의 강력한 사명활동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로마에서 고난당하던 자들과 함께 목숨을
바쳤다. 타이투스의 온 집안사람과 친구들 그리고
사도들까지도 이 에피소드를 하나의 기적으로 여겼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적어도 이것은 육신의 병을 고친
기적은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 법칙의 과정에 대한

그의 선행지식의 경우로써, 예수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자주 의존한 그러한 지식이었다.

146:5.3 (1645.1) 다시 한 번 예수는 가나로부터 떠나야만 하였는데, 두 번째의 에피소드로 인하여 지나친 관심이 이 동네에서 그의 사명활동에 집중되었기 때문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게다가 이제는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유명 인사의 아들을 고친 셈이 되었으므로, 그들은 병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데리고 왔을 뿐만 아니라, 그가 멀리서 고쳐 주기를 바란다는 메신저들을 또한 보내오기도 하였다. 온 지방이 일어나는 것을 보신 예수는, “나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였다.

제 6 장. 나인과 과부의 아들

146:6.1 (1645.2)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다; 기적을 찾는 세대였다. 이 무렵까지 중부와 남부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예수와 그의 개인적 사명활동에 대하여 기적이 나타날 것을 고대해 오고 있었다. 순전히 정신적인 갈등이나 감정적인 혼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던 수많은 진실한 사람들도 예수의 현존 앞에 나왔는데, 그들은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예수로부터 고침을 받았다고 전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적 치유 경우들에 대하여, 무지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치유, 기적적인 고침을 받았다고 여겼다.

146:6.2 (1645.3) **예수가 가나를 떠나 나인으로 가시려고 하자,** 수많은 신도들과 호기심에 찬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싶어 하였으며, 실망을 겪지 않게 되어 있었다. 예수와 사도들이 성문에 가까이 왔을 때, 근처의 공동묘지로 가고 있는 나인에 사는 한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 행렬과 마주쳤다. 이 여인은 매우 존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반 이상이 이 죽은 소년의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장례의 행렬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 앞까지 왔을 때, 과부와 그녀의 친구들이 주(主)를 알아보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가 인간의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기적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그러한 치료자라면 왜 죽음에서도 살려낼 수 없겠는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한 괴로운 상황에서 예수는 앞으로 나아가 관의 뚜껑을 열고 그 소년을 조사하였다. 그 젊은이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현존이 되돌아 올 수 있는 그러한 비극임을
알아차리셨다; 그리하여 그는 그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씀하였다: “울음을 그쳐라. 너의 아들은 죽지 않았다;
그가 자고 있다. 그가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젊은이의 손을 잡고 “깨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였다. 그러자 죽었다고 생각되었던 젊은이가 곧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였고, 그런 후 예수는 그들을
집으로 되돌려 보내셨다.

146:6.3 (1645.4) 예수는 무리들을 조용히 시키고, 그런 후 그
청년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과 그가
무덤으로부터 그를 다시 불러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애쓰셨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를 따랐던
무리들과 나인의 온 동네는 감정적 흥분이 절정에
달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공포심이 엄습하였으며, 한편 나머지
사람들은 꿇어앉아 기도를 하거나 자기들의 죄에 대해
울부짖었다. 그리고 소란스러운 무리들이 해산된 것은
밤이 오고도 한참이 지난 후였다. 물론 그 소년이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예수의 말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주장하였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까지 말하였다. 예수가 그들에게 그 소년이 단지 깊은 잠에 들어 있었다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은 평소 예수의 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그가 항상 기적을 감추려고 엄청나게 겸손함을 보였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146:6.4 (1646.1) 그래서 예수가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냈다는 이 소문은 갈릴리 전역과 유대까지 퍼졌으며,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이들이 그것을 믿었다. 예수는 자기가 과부의 아들에게 깨어서 일어나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소년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결코 자신의 사도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키실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충분히 그들에게 강조했기 때문에, 누가의 기록을 제외하고는 모든 후대(後代)의 기록들에서 그 사건이 포함되지 않았다. 누가는 에피소드가 자신에게 관계가 있었으므로 그것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다시 의사로서 너무나 많은 초대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 일찍 엔도르로 출발하였다.

제 7 장. 엔도르에서

146:7.1 (1646.2) 예수는 육신의 병 고침을 원하는 소란스러운 무리들을 피하여 엔도르에서 며칠을 보내셨다. 이곳에서 그들이 체류하는 동안 주(主)는 사울 왕과 엔도르의 마녀에 대하여 사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였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방황하고 있고 반역적인 중도자들, 때때로 죽은 자의 영들이라고 여겨진, 개인이-아닌 것으로 해왔었던 그 존재들은 곧 통제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이러한 이상한 일을 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였다. 그는 자기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후에 그리고 자기들이 자신들의 영을 모든 육신들에게 쏟아 부어준 후에는, 그러한 반(半)영적 존재들—소위 더러운 영들이라고 불리는—은 필사자들 속에서 미약한 자들과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더 이상 장악할 수 없다고 자기 추종자들에게 말씀하였다.

146:7.2 (1646.3) 예수는 자기 사도들에게, 인간 존재들로부터 떠나간 영들이 그들의 생존되고 있는 동료들과 교통하기 위하여 그들이 있었던 기원적 세계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한 섭리시대적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필사 사람의 진보된 영이 지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하며, 그것은 단지 예외적인 경우이고 그 행성의
영적 관리-행정의 한 부분으로서만 가능하다.

146:7.3 (1646.4) 그들이 이틀 동안의 휴식을 취했을 때, 예수가
사도들에게 말씀하였다: “그 지방이 조용해질 동안 우리는
내일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면서
가르치도록 하자. 집에 가면 지금쯤 이러한 종류의
흥분에서 다소 회복되어 있을 것이다..

제 147 편 막간의 예루살렘 방문

147:0.1 (1647.1) 예수와 사도들은 3월 17일 수요일에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까지 두 주일을
벳세다의 본부에서 지냈다. 이 두 주일 동안 사도들은
해변에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한편 예수는 자기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 언덕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는 세베대 형제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티베리아스로 두 번 은밀히 여행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신도들과 함께 만났고, 왕국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147:0.2 (1647.2) 헤롯 집안의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으며,
이러한 회합에 참석하였다. 그의 집안 출신으로 신도가 된

사람들의 영향은, 예수에 대한 그 통치자의 적대감이 감소되는 데 도움이 되었었다. 티베리아스의 이 신도들은, 예수가 선포하는 “왕국”은 원래 영적인 것으로써, 정치적 위험이 없다는 점을 헤롯에게 잘 설명해 주었다. 헤롯은 자기 집안사람들을 믿었으며, 따라서 필요 이상의 걱정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과 치유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밀고자를 온 사방으로 파견하는 일을 중지하였다. 그는 치유자나 종교 선생으로서의 예수의 일에는 아무런 적대감이 없었다. 그러나 헤롯의 많은 충고자들과 헤롯 자신의 호의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종교 영도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던 약간의 신하들은 예수와 사도들에 대하여 신랄하고도 험악한 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나중에는 그들의 공개적인 활동들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예수에게 가장 큰 위험은 헤롯이 아니라, 예루살렘 종교 영도자들에게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예수와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보다는 갈릴리에서 더 많이 지내면서, 거기에서 그들의 대부분의 대중 설교를 하였다.

제 1 장. 백부장의 하인

147:1.1 (1647.3) 유월절 축제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날에, 가버나움에서 로마의 수비를 맡아보는 군대의 백부장인 망구스가 회당의 통치자들에게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의 충직한 하인이 병이 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예수에게 가서 나의 하인을 좀 고쳐 달라고 간청해 주시겠습니까?” 그 로마 지휘관은 유대인 영도자가 예수에게 좀 더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부탁하였다. 그래서 장로들이 예수를 보러왔고 그들의 대변인이 말하였다: “선생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로마 백부장의 사랑하는 하인을 살려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 백부장은 훌륭한 사람으로,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있으며, 당신께서도 여러 번 설교를 하였던 그 회당을 우리에게 지어 주었습니다.”

147:1.2 (1647.4) 예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였다. 그가 백부장의 집으로 가자, 정원을 들어서기도 전에 그 로마의 군인은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를 맞이하게 했으며,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지시하였다: “주님, 저는 당신이 저의 집에 들어오실 만큼 훌륭한 사람이 못되니, 집안으로 들어오시는 수고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당신

앞에 나갈만한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당신의 사람들인 장로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올
것임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명령을 받으며, 제 아래에도 군인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오고, 내
하인들에게 이것저것을 하라 하면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147:1.3 (1648.1) 그리고 이러한 말을 들으신 예수는, 자기
사도들과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였다: “내가 이 이방인의 믿음에 감탄하였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신앙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집으로부터 나가시며 예수는 “그러면 돌아가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였다. 백부장의 친구들은 집으로
들어가서 망구스에게 예수가 한 말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부터 그 하인은 차도를 보이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정상적인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갔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47:1.4 (1648.2) 그러나 이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며, 그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백부장의 하인을 낮게 하였는지에 대한 것은 예수를 동반했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다만 그 하인이 완쾌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다.

제 2 장. 예루살렘으로 여행

147:2.1 (1648.3) 3월 30일 화요일 아침 일찍, 예수와 사도 집단은 유월절에 참가하기 위하여 요단 계곡의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4월 2일 금요일 오후에 도착해서, 그들의 본부를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베다니에 두었다. 여리고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유다가 그의 가족의 친구의 은행에 기금을 예치하는 동안 휴식을 취하러 잠시 멈추었다. 유다가 잉여금을 소지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는데, 이 저축금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 바로 전에 그 마지막이고 사건 많은 예루살렘으로 가던 여행에서 그들이 다시 여리고를 지날 때까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147:2.2 (1648.4) 그 무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별다른 특기할 만한 사건 없이 여행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베다니에서 아직 자리를 잡기도 전에, 가깝고 먼 곳으로부터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픈 마음을 위안 받기 위해서, 그들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는 거의 쉴 겨를이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겿세마네에 천막을 쳤으며, 주(主)는 그에게로 끊임없이 몰려드는 군중들을 피하기 위하여 베다니와 겿세마네를 왕래하였다. 사도 집단이 거의 삼 주 동안이나 예루살렘에서 머물렀지만, 예수는 그들에게 어떤 대중 설교도 하지 말고, 오직 사적인 가르침과 개인적 일만 하라고 명하였다.

147:2.3 (1648.5) 베다니에서 그들은 조용히 유월절을 축하하였다. 예수와 12사도 모두가 희생물이 없이 유월절 축제를 지내기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요한의 사도들은 유월절에 예수와 그의 사도들과 함께 지내지 않고, 아브너와 요한을 믿었던 초기 신도(信徒)들과 축제일을 지켰다. 이것이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사도들과 보내신 두 번째 유월절이었다.

147:2.4 (1648.6) 예수와 12사도들이 가버나움으로 떠났을 때, 요한의 사도들은 그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았다. 아브너의 지도 아래에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그 근방의 지역에 남아 조용히 왕국을 확장시키는 일을 하였으며, 한편 예수와 12사도들은 일을 하기 위해 갈릴리로 돌아갔다. 70명의 복음 전도자를 임명하여 파견하기 바로 전까지는, 그 24명이 다 함께 하는 경우는 다시없었다. 그러나 두 집단들은 협조적이었으며, 그들이 의견을 달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감정들을 지속시켜 갔다.

제 3 장. 벳세다의 연못

147:3.1 (1649.1) 예루살렘에서의 두 번째 안식일 오후에 주(主)와 사도들이 성전 봉사예배에 막 참석하려 했을 때,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제가 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예루살렘 성문 중의 하나를 통하여 밖으로 안내하여, 벳세다라고 불리는 연못으로 인도하였다. 이 연못 주위에는 다섯 개의 행각(行閣)이 있었는데, 그 아래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큰 집단이 병이 고쳐지기를 원해서 모여 있었다. 이곳은 온천이었는데, 불그스레한 색의 물이 연못 아래에 있는 바위 동굴에 축적되어진 공기로 인하여 불규칙적인

간격으로 끓어오르곤 하였다. 이러한 주기적인 온수의
소용돌이를 많은 이들은 초자연적인 영향에서 온다고
믿었으며, 그래서 물이 움직인 직후에 처음으로 물에
들어간 자는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는 믿음이
성행하였다.

147:3.2 (1649.2) 사도들은 예수가 지시한 제약에 어느 정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어린 요한이 특히
더 이 제약에 반항적이었다. 그는 고난당하는 무리들의
광경이 어찌면 주(主)의 연민을 일으켜 그를 감동시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어찌면 그가 치료의 기적을
행할지도 모르며, 그렇게 되면 모든 예루살렘은 경탄할
것이고, 곧 왕국 복음 안에서 그들을 믿음의 승리로 이끌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예수를 그 연못으로 모시고 갔던
것이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主)여, 이 모든
고난당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가
대답하였다: “요한아,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내가 선택한
길로부터 옆길로 가도록 나를 유혹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영원한 진리의 복음 선포 대신에, 경이로운 일들과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 아들이, 나는 네가

원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들 병자들과 고난당하는 자들을 모아 놓고, 그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영원한 위안의 말들을 해주겠다.”

147:3.3 (1649.3)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말을 하면서 예수가 말씀하였다: “여기 있는 너희들 대부분은 여러 해 동안의 그릇된 삶으로 인하여 병들고 고통 속에서 여기에 모여 있다. 너희들 중에서 일부는 살면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고통 받고,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오류의 결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다. 한편 너희 중 어떤 이들은 너희 현세에서의 신체장애들과 불완전한 조건으로 힘들게 싸우고 있다. 이 세상에서의 너희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그리고 특히 너희의 영원한 상태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며, 나 역시 일하고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는 한, 우리들 중에 누구도 삶의 어려움을 바꿀 수는 거의 없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영원한 분의 뜻을 행하도록 은혜를 입고 있다. 너희의 육신의 병이 모두 고쳐진다면, 너희는 진정으로 경탄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영적 질병이 낫게 되고, 모든 도덕적인 허약함이 고쳐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너희에게 큰

것이다. 너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들이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다. 시간의 속박이 너에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의 하느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심판이 내려지는 그러한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모두가 공의뿐만 아니라 풍성한 자비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왕국 복음을 듣고, 하느님의 아들이 된다는 가르침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미 그러한 믿는 자들은 심판과 죽음을 지나 빛과 생명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까지도 부활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오고 있다.”

147:3.4 (1649.4) 듣고 있던 많은 자들이 왕국 복음을 믿었다. 고난당하는 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큰 영감을 받고 영적으로 소생하여서, 그들의 육신의 병까지도 고쳐졌다고 전파하고 다녔다.

147:3.5 (1649.5) 자신의 괴로운 마음 질환으로 인하여 여러 해 동안 우울하고 심각하게 고통을 받아왔던 한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을 향유하게 되었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갔다. 고통 받던 이 사람은 그 모든 세월 동안 누군가가 자기에게 도움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낀 희생자였기 때문에, 회복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행해야만 했던 한가지 일—그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자기 스스로를 돌보아야 한다는 그러한 관념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다.

147:3.6 (1650.1) 그리고 나서 예수는 요한에게 말씀하였다: “사제들과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병든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을 하였다고 꼬투리를 잡기 전에, 여기를 떠나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은 동행자들과 합류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돌아왔고, 그들 모두는 베다니에서 밤을 지내기 위해 곧 돌아갔다. 요한은 자신과 예수가 이 안식일 오후에 벳세다의 못에 갔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도들에게는 결코 말하지 않았다.

제 4 장. 삶의 규칙

147:4.1 (1650.2) 같은 날인 이 안식일에 예수와 12사도들 그리고 신도들의 집단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정원에서 불 옆에 모여 있었을 때, 나다니엘이 예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주(主)여, 우리에게 남들이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들에게도 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일생의 옛 원칙들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그러한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 가운데에 기꺼이 어울리고자 찾아다니는 사악한 호색한(好色漢)의 경우를 예로 들어, 제 뜻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악을-의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147:4,2 (1650.3) 예수는 나다니엘의 질문을 들으시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서서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씀하였다: “나다니엘아, 나다니엘아! 너는 가슴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는 영(靈)으로 난 자로서 내 가르침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너는 지혜와 영적 납득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진리를 듣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을 때, 내가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지, 나의 가르침을 악한-행위의

용기를 고무하는 허가증으로 왜곡하도록 유혹당할 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

147:4.3 (1650.4) 주(主)께서 말을 마치시자, 나다니엘이 일어나서 말하였다: “그러나 주(主)여, 제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해석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못 판단한다는 가정 아래에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들에 관한 설명을 좀 더 우리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다니엘이 자리에 앉자, 예수가 말씀을 계속하였다: “나다니엘아, 나는 네가 마음속에서 그런 악한 관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나는 인간의 언어로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하듯이 가르칠 수밖에 없는 나의 일상의 가르침에 대해, 네가 그렇게 자주 진정으로 하는 영적 해석에 실패하는 것에 실망이 가는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는 이 가르침, 삶의 원칙에 대한 해석에 부가되어있는 여러 다른 차원의 의미들에 관해 가르쳐주도록 하겠다:

147:4.4 (1650.5) "1. 육신의 차원. 그러한 순전히 이기적이고 호색적인 해석은 너의 질문에서의 가정에 의해 잘 예증될 것이다.

147:4.5 (1650.6) "2. 감정의 차원. 이 차원은 육신의 차원보다는 한 차원 높은 것이며, 동정심과 연민이 이러한 삶의 원칙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47:4.6 (1650.7) "3. 마음의 차원. 마음의 이성(理性)과 체험의 지능이 이제 행동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삶의 원칙이 그렇게, 심오한 자아-존중의 고결성으로 체현된 최고의 이상주의에 조화되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훌륭한 판단이 명령한다.

147:4.7 (1651.1) "4. 형제같은 사랑의 차원. 자신의 형제들의 안녕에 사심-없는 헌신을 하는 좀 더 높은 경지의 차원이 발견된다.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을 의식하고, 그 결과로 사람의 형제신분을 인식함으로서 성장하여 나오는, 전심을 다하는 사회적 봉사의 이러한 더욱 높은 경지에서, 일생의 이 기본적 원칙의 새롭고 훨씬 더 아름다운 해석이 발견된다.

147:4.8 (1651.2) "5. 도덕적 차원. 그런 다음에 너희가 해석에서의 참된 철학적 차원을 달성할 때, 사물의 옳고 그름됨에 대하여 실제 통찰력을 가질 때, 인간 관계의 영원한 어울림을 감지할 때, 어떤 고결하고, 이상적이고, 현명하고 그리고 편견 없는 제 삼자가 너희 일생 상황에 대한 조절에서의 너희 개인적 문제에 적용되는 것으로. 명령을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하리라 너희가 상상하는 대로, 너희는 해석의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다.

147:4.9 (1651.3) "6. 영적 차원.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하리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신성한 명령을, 이 일생의 원칙에서 인식할 것을 우리에게 재촉하는, 그러한 영적 통찰력과 영적 해석의 차원을 우리가 달성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 관계에 대한 우주의 이상(理想)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최극 욕망이 언제까지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일 때에, 모든 그러한 문제를 대하는 너희의 자세이다. 그러므로 비슷한 정황에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것을,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행하게 되기를 바란다."

147:4.10 (1651.4) 이때처럼 예수가 사도들을 놀라게 한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은 예수가 물러가신 이후에도 한동안 주(主)의 말을 놓고 토론을 계속하였다. 나다니엘은 자신의 질문에서의 영을 예수가 오해하였다는 자신의 추측으로부터 회복하기까지 더디었지만, 다른 자들은 자신들의 철학적인 동료 사도가 생각을-촉발시키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용기를 가졌었다는 것에 고마워하는 정도가 아니었다.

제 5 장. 바리새인 시몬을 방문하다

147:5.1 (1651.5) 시몬은 비록 유대인의 산헤드린 의원은 아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유력한 바리새인이었다. 그는 건성으로 믿는 신도였는데, 심한 비난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예수와 그의 개인적 사도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손님 초대 만찬에 주(主)를 지켜 보아왔고, 그의 가르침과 특히 그의 개인성에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147:5.2 (1651.6) 그 부유한 바리새인들은 자선 행위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박애정신에 관해 홍보되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어떤 때는 그들이 어떤 거지에게

자선을 베풀고자 할 때에 나팔까지 불려고 하였다. 바리새인들이 저명인사를 위한 만찬을 베풀 때, 심지어는 거리의 거지들까지도 들어오도록 그 집의 문들을 열어 놓았고, 거지들은 식사하는 자들의 의자들 뒤에서 방의 벽을 따라 둘러서서, 손님들이 그들에게 던져 줄지도 모르는 음식 조각들을 받을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다

147:5.3 (1651.7) 시몬의 집에서 열린 이 날 만찬에 거리로부터 들어온 자들 중에는, 평판이 좋지 않은 여자가 하나 있었다. 그녀는 왕국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 최근에 신도가 된 사람이었다. 이 여자는 전에 이방인의 성전 뜰 가까이에서 노골적으로 장사하는 소위 고급 매춘 장소를 가지고 있던 주인으로, 예루살렘 전역에 그런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후, 자신의 좋지 못한 사업을 그만두었고, 자기에게 고용되었던 대다수의 여인들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권하여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도록 인도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바리새인들로부터 경멸을 받고 있었고, 머리를 내리도록—매춘부의 표시를—강요받고 있었다. 이름 없는 이 여인이 향유를

담은 큰 병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앉은 예수 뒤에 서 있다가, 그가 음식을 들면서 소파에 기댈 때, 그녀의 감사의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의 발에 향유를 붓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향유 바르기를 끝마친 후에도, 눈물을 흘리며 그의 발에 입맞춤을 계속하였다.

147:5.4 (1652.1) 시몬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스스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그녀가 악명 높은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다.” 예수는 시몬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크게 말씀하였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시몬이 “선생님, 말씀하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가 말씀하였다: “어느 부자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다. 그런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모두 탕감하여 주었다. 시몬아,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였을 것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시몬이 대답하기를,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네 판단이 옳다.”라고 하고 여자를 가리키시며 계속 말씀하였다: “시몬아, 이 여자를 잘 보아라. 내가 너의

집에 초대된 손님으로 들어 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감사를 표시하는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영접하는 입맞춤을 하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온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저 여인은 귀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단지 이것은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더욱 더 사랑하도록 그녀를 이끈 것이다. 그렇지만 용서를 받아들였으나 적은 자는 종종 사랑하지만 적다.” 그리고 그 여인을 돌아보시고,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였다: “너는 네 죄를 정말로 회개하였으며, 그것들은 용서를 받았다. 지각없고 불친절한 네 친구들의 태도로 인해 낙망하지 말고, 하늘의 왕국의 기쁨과 해방을 누리면서 가거라.”

147:5.5 (1651.9) 그와 함께 식탁에 앉았던 시몬과 그의 친구들은 이 모든 말을 듣자, 더욱 더 놀랐으며 자기들 사이에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죄까지도 사하는가?”라고 하였다. 예수는 그들이 그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여인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였다: “여인아, 네 신앙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147:5.6 (1651.10) 예수가 떠나기 위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몬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였다: “네 가슴이 신앙과 의심 사이에서 얼마나 찢기는지, 네가 얼마나 두려움으로 인해 괴롭고, 자부심으로 고통을 받는지, 그런 너의 가슴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나는 네가 빛에 따르고, 이미 찾아온 왕국 복음이 초대받지 않았고 환영받지 못한 너의 손님의 가슴속에 가져온 엄청난 변화에 비교될 수도 있는, 그렇게 영과 마음의 강력한 변환을 너의 일생의 정거장에서 체험하게 되기를 기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모두에게 선언하겠는데, 아버지는 들어오려는 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하늘왕국의 문을 열어놓으시며, 가장 천박한 자거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들어오기를 구한다면, 사람 중의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주인에게 작별을 고한 후, 나머지 사도들이 머물고 있는 겟세마네 정원의 야영지로 돌아갔다.

147:5.7 (1653.1) 바로 그 날 저녁에 예수는 기억할 만한 긴 연설을 사도들에게 하였는데, 그것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 지위에서의 상대적인 가치와 그리고 파라다이스를 향한 영원한 상승으로의 진보에 관한 것이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의 자녀들아, 아이와 아버지 사이에 참되고 살아있는 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상들을 향하여 진보할 것이 확실하다. 처음에는 그 아이는 참으로 천천히 진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진보는 틀림없다. 중요한 것은 너희의 진보의 신속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확실성이다. 너희의 실재적인 성취가, 너희의 진보가 하느님 쪽으로 있다는 그 방향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루하루 너희가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너희가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무한하게 더욱 중요하다.

147:5.8 (1653.2) "너희 중에서 일부가 오늘 시몬의 집에서 보았던 그 변환된 여자는 지금 당장은 시몬과 그의 선의의 친지들보다 상당히 아래의 차원에서 살고 있지만; 이들 바리새인들이, 의미 없는 의례적인 예배봉사로서 반복적이고 속이는 집단의, 망상의 헛된 진보에 있는 동안, 이 여자는 절대적인 진실로서 하느님을 향하여 길고도

사건 많은 추구를 시작하였으며, 그리고 하늘로 향해 가는 그녀의 길이 영적 자부심이나 도덕적 자아-만족으로 막혀있지도 않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여인은 시몬보다 하느님에게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이나, 그녀의 혼은 진보하려는 움직임 속에 있다; 그녀는 영원한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다. 이 여인에게는 미래의 엄청난 영적 가능성이 나타나 있다. 너희 중의 일부는 혼과 영의 실재적인 차원에서 높은 곳에 와 있지 않지만, 너희는 신앙을 통하여 하느님을 향해 위로 열려있는 삶의 길에서, 매일 같이 향상을 보이고 있다. 너희 각자에게는 미래를 위한 무궁한 가능성들이 있다. 죽어버린 세상에서의 지혜와 영적 불신으로 가득 찬 큰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작지만 살아있고 성장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147:5.9 (1653.3) 그러나 예수는 자기 사도들에게 하느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주제 넘는 가정(假定)을 하지 않도록 진심으로 경고하였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언제나 죄를 묵인해주고 무모함을 용서하는, 그렇게 느슨하고 험겁고 어리석게 관대하기만 한 그런 부모가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듣는 이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그가 설명을, 하느님이 마치, 이 세상의 어리석음과 협력하여 지각없는 자녀들의 도덕적 타락을 에워싸는, 그래서 어릴 때에 자신의 친 자손의 비도덕성과 비행에 확실하고도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현명치 못하고 지나치게 응석을 받아주는 부모들과 비슷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였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의 아버지는 모든 도덕적 성장과 영적 진보에 자아-파괴적이고 자멸적인 그러한 행동과 실천들을 관대하게 묵인하지 않으신다. 그러한 죄로 가득한 실천들은 하느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들이다.”

147:5.10 (1653.4) 예수가 자신의 사도들과 최종적으로 가버나움으로 떠나기 전까지, 소수가 모인 많은 다른 회합들과 연회 석상에, 예루살렘에의 높고 낮은 사람들과 부자와 가난한 자와 함께 참여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왕국 복음을 믿게 되었으며, 그들은 나중에 왕국에 대한 관심을 육성시키려고 예루살렘과 그 주위에서 남아 있었던 아브너와 그의 연관-동료들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제 6 장. 가버나움으로 돌아감

147:6.1 (1653.5)

4월의 마지막 주간에 예수와 12사도들은 예루살렘 근처의 그들의 베다니 본부를 떠나, 여리고와 요단을 경유하여 가버나움으로의 여행을 시작하였다.

147:6.2 (1654.1)

사제들과 유대 종교 영도자들은 예수에 관한 대책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차례 비밀 회담을 열었다. 그들 모두가 예수의 가르침을 중단시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했지만, 그것의 방법론에서 합의를 볼 수 없었다. 그들은 헤롯이 요한을 처형한 것처럼 정부가 예수를 처벌해 주기 바랐으나, 예수가 그의 일을 너무나 잘 수행시켜서 그의 설교는 로마 관리자들에게 위기감을 조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예수가 가버나움으로 떠나기 전 날 열렸던 회담에서, 그들은 예수를 종교적인 책임으로 체포되어서 최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여섯 명의 비밀 첩자가 예수를 따라가도록 임명되었고, 그들은 그의 가르침들과 행동들을 관찰하여 범위반이나 신성모독 죄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들을 수집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그 보고를 가지고 돌아오기로 하였다. 이 여섯 유대인들은 약 30 명 정도 되는 사도 집단과 여리고에서 만났으며, 제자가 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예수의 추종자들 가족의 일원의 신분으로 갈릴리에서 두 번째 설교 여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남아 있었다. 그 후에 그들 중 세 사람이 사제들과 최고 법원에 그들의 보고를 제출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147:6.3 (1654.2)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베드로가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설교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은 아마투스 쪽으로 강 위를 거슬러 가며 이동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곧장 가기를 원했으나, 거기에 모여 있던 무리로 인하여 삼 일 동안 머무르면서 설교를 하고 세례를 주었다. 그들은 5월의 첫 날인 안식일 이른 아침까지는 집을 향하여 갈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예루살렘 첩자들은 예수가 안식일에 여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예수에 대한 그들의 첫 번째 고소의 물증—안식일 준수 파괴—을 잡게 되리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기 바로 전에 예수는 안드레를 그의 앞으로 불러, 그들이 보는 앞에서 유대 안식일의 법적 거리인 1,000 야드만 가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로 돌아갔다.

147:6.4 (1654.3) 그러나 그들이 안식일 준수 파괴 문제를 가지고 예수와 그의 사도들을 비난할 기회가 얼마 되지 않아

나타났다. 그들이 좁은 길을 지날 때, 양쪽 길가에는 잘 무르익은 밀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사도들 중에서 몇 명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익은 곡식을 뜯어서 먹었다. 여행자가 길을 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곡식을 뜯어먹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그러한 행위가 그릇된 행동이라는 그 어떤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그 첩자들은 이것을 예수를 힐난 할 수 있는 핑계로 삼았다. 그들이 손으로 곡식을 비비는 안드레를 보자,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안식일에 곡식을 뜯어 손으로 비비는 것이 법을 어기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자 안드레가 대답하였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필요한 만큼만 취하였다. 언제부터 안식일에 곡식을 먹는 것이 죄가 되었느냐?” 그러나 바리새인이 대답하였다: “곡식을 먹는 것은 아무 그릇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곡식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는 일은 법을 어기는 일이다. 너희의 주(主)께서도 그러한 행동을 확실히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자 안드레가 말하였다: “만약 곡식을 먹는 일이 잘못 된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손으로 그것을 비비는 일이 너희가 허락하는 곡식을 씹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어찌하여 그런

하찮은 일로 탈을 잡는가?” 안드레가 그들을 궤변가라고
넌지시 비난하자, 그들은 격분하여, 예수가 마태와
말씀하면서 걷고 있는 장소로 급히 가서 항의하면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 당신의 사도들이 안식일에
법을 어기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곡식을 따서 손으로
비비어 먹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들에게 그만 두라고
명령을 내리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비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진정으로 법에
열심인 사람들이로구나. 너희가 안식일을 신성하게
지키라는 것을 매우 잘 기억하였다. 그러나 다윗이 배가
고파서 그와 함께 한 자들과 함께 하느님의 전에 들어가,
사제 외에는 먹지 못하는 제사상의 빵을 먹고, 그가 또한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었다는 것을 너희가 성서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안식일에 필요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을 우리의 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완결되어지는 날이 오기 전에 오늘의 필요를 위해 너희의
준비해 온 음식을 너희가 먹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아야
하겠느냐? 나의 선한 사람들아, 너희는 안식일을 위하여
열심인 것은 잘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 형제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것이 더욱 좋은 것이다. 내가 선언하건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만약 너희가 이곳에 내가 하는 말을 감시하려고 같이 있는 거라면, 나는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에도 주인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것이다."

147:6.5 (1655.1) 바리새인들은 그의 통찰력과 지혜 있는 말들에 경탄하였고, 당황하였다. 그날의 나머지 시간들을 그들은 자신들끼리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감히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였다.

147:6.6 (1655.2) 유대의 전통들과 노예적인 의식(儀式)들에 대한 예수의 반목은 항상 긍정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행동하고 확인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주(主)는 부정적인 탄핵에는 거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하느님을 아는 자들은, 죄 짓는 자유로움으로 그들 스스로를 현혹하지 않고도, 그들의 삶의 자유를 즐길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만약 너희가 진리에 의해 깨우쳐지고, 자신이 하는 일을 실제로 알고 있다면, 너희는 이미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신성한 길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불행하며, 이미 법칙을 어긴 자들이다."

제 7 장.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감

147:7.1 (1655.3) 예수와 12사도들이 타리케아로부터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간 때는 5월 3일 월요일 정오경이었다. 그들은 그들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하여 배로 여행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공식적인 첩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발견하였다.

147:7.2 (1655.4) 화요일 밤에 예수가 그의 관례적인 질의 응답의 교실을 수행하고 있었을 때, 여섯 첩자들 중의 하나가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당신의 가르침에 참석하고 있는 요한의 제자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라 하였고 요한도 그의 추종자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종용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요한의 말에 관련하여 이 질문자에게 대답하였다: “결혼 잔치 집의 자녀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하느냐?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한은 그들이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 시절 동안에는 결혼 잔치 집 자녀들이 의심할 것도 없이

금식하고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금식은 하늘의 왕국 복음의 일부가 아니다. 현명한 재단사는 헌 옷에 줄지 않은 새 천의 조각을 기우지 않는데, 그것이 젖으면 줄어들어 더욱 나쁜 틈을 만들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든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는데,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염려하기 때문이다. 현명한 자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 따라서 나의 사도들은 새로운 왕국 복음에 대한 가르침에다 너무 많은 낡은 명령을 가져오지 않는 현명함을 보이고 있다. 너희의 선생을 잃은 자들은 한동안 금식을 하는 것이 옳다. 금식은 모세의 법칙에서 타당한 부분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왕국에서의 하느님의 자녀들은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신성한 영 안에서 기쁨을 체험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들을 들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은 위안을 받았고, 한편 바리새인들은 더욱 더 어리둥절해졌다.

147:7.3 (1656.1) 그리고 나서 주(主)는 모든 옛 가르침들을 전반적으로 새로운 교리들로 대체해야한다는 생각을 품지

않도록 청중에게 경고를 주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오래되고 또한 참된 것은 지속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새롭지만 거짓된 것은 물리쳐야 한다. 그러나 새롭고도 참된 것을 받아들일 신앙과 용기를 가져라. 다음과 같이 쓰인 글을 기억하라: ‘옛 친구를 저버리지 말 것이니, 새 친구는 그와 견줄 수 없음이다. 새 친구는 마치 새 포도주와 같다. 만약 그것이 오래 되면, 너희는 기쁨으로 그것을 마실 것이다.’”

제 8 장. 영적 선(善)의 축제

147:8.1 (1656.2) 그 날 밤 일반 청중들이 돌아간 한참 후에도, 예수는 그의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계속하였다. 그는 이 특별한 가르침을 이사야 예언서로부터 인용하였다:

147:8.2 (1656.3) “왜 우리가 금식했는가? 압박 속에서 기쁨을 찾고, 불공정에서도 즐거움을 찾는다면, 무슨 이유로 너희가 너희의 혼을 괴롭히는가? 보라, 너희가 투쟁과 논쟁을 위하여 금식하며, 사악함의 손목으로 내려친다. 너희는 너희의 음성이 높은 곳에 상달되기 위한 이런 식의 금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147:8.3 (1656.4) “그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베와 재를 입고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냐? 너희가 감히 이것을 금식이라 부르고, 주님의 눈에 받아들여지는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택하는 금식은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린 자에게 나의 빵을 나누어주며, 집 없는 자와 가난한 자를 나의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더냐? 그리고 벗은 자를 보면, 내가 그들을 입힐 것이다.

147:8.4 (1656.5)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주님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라. 그리하면 네가 주님을 부를 때에 그가 대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약 네가 압박과 저주와 허영을 버린다면, 이 모든 것을 그가 하리라. 아버지는 정말로 네가 주린 자에게 너의 가슴을 내어주며, 고통 받는 혼을 네가 돌보기를 갈망한다. 그러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네 혼을 만족케 하며, 너의 힘을 새롭게 하리라.
너는 물 댄 정원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황폐된 영광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들은 역대의 기초들을 다시 세울 것이리라.
그들을 무너진 벽을 수리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불리리라.”

147:8.5 (1656.6) 그리고 나서 밤늦도록 예수는 사도들에게 현재와
미래의 왕국에서 그들을 붙잡아 줄 것은 혼을 괴롭히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신앙이라는 진리를
밝히셨다. 그는 사도들에게 적어도 옛날의 선지자의
관념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열심히
당부하였고, 그들이 이사야와 그 이전의 선지자들의
이상(理想)을 훨씬 넘어서 진보했으면 하는 희망을
밝히셨다. 그 날 밤 그의 마지막 말씀은 다음과 같았다: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며, 한편 동시에 형제로서 모든
사람을 인식하는 그 사실을 파악하는 그 살아있는
신앙으로 은혜 속에서 성장하라.”

147:8.6 (1656.7) 예수가 말씀을 끝내셨을 때는 새벽 두 시가 지난 후였으며, 모든 사람은 잠을 자기 위해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다.

제 148 편 벳세다에서의 전도자들 훈련

148:0.1 (1657.1) 기원후 28년 5월 3일에서 10월 3일까지 예수와 사도 집단은 벳세다에서 지내면서 세베대의 집에 거주하였다. 이 건조한 기간 동안의 다섯 달 내내 세베대의 집 근처 해변을 따라 거대한 야영지(野營地)가 형성되었고, 그것은 자라나고 있는 예수의 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엄청나게 커져 갔다. 진리 추구자들, 병 고침을 바라는 자들,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로 구성된 이 야영지에는 500 명에서부터 1,500 명까지 달하는 항상 변하는 숫자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 천막 도시는 전반적으로 알패오 쌍둥이 형제의 도움을 받는, 다윗 세베대의 감독 아래 있었다. 그 야영지는 그것의 일반적인 관리-행정은 물론이고, 질서와 위생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것이었다. 종류가 다른 병자들은 따로 격리되어 엘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리아인의 감독 아래에 있었는데, 그는 믿게 된 의사였다.

148:0.2 (1657.2) 이 기간을 통하여 사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고기를 잡으러 나갔고, 그들이 잡은 고기를 해변 야영지에서 쓰이도록 다윗에게 팔았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기금은 그 집단의 회계에게 맡겨졌다. 12사도들에게는 한 달에 일주일 동안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지내도록 허락되었다.

148:0.3 (1657.3) 안드레가 사도 활동을 전반적으로 맡아보는 것을 계속했고, 베드로는 전도자들의 학교를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매일 오전에는 사도들이 전도자 집단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몫을 담당하였고, 오후에는 선생들과 학생들 모두가 일반 사람들을 가르쳤다. 저녁식사 후에는 일주일에 닷새 동안 사도들은 전도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질문 교실을 수행했다. 일주일에 한번 예수가 이 질문 시간을 주관하였으며, 아직 해답을 갖지 못한 그 이전에 있었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해주었다.

148:0.4 (1657.4) 다섯 달 동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야영지에 다녀갔다. 로마제국의 전 지역과 유프라테스의 동쪽 지역으로부터, 관심을 가진 자들이 빈번히 참석하였다. 이것은 주(主)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길게 한 곳에

정착하면서 훌륭한 조직을 가졌던 기간이었다. 이 해에
예수의 친 가족은 나사렛이나 가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148:0.5 (1657.5) 야영지는 공동 관리하는 공동체로서 수행되지
않았다. 다윗 세베대가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면서도,
자아-지탱하는 기업으로 키우면서 이 큰 천막 도시를
끌어나갔다. 항상-바뀌고 있는 이 야영지는 베드로의
전도자 훈련 학교의 없어서는 안 될 중요역할 이었다.

제 1 장. 선지자들의 새로운 학교

148:1.1 (1657.6) 예수는 전도자들의 학교에 입학(入學)하려는
신청자들의 심사 위원들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를
임명하였다. 이 새로운 선지자(先知者) 학교의 학생들
중에는 로마 세계와 그리고 동쪽으로는 멀리 인도까지,
모든 종족들과 민족들이 대표되어 있었다. 이 학교는
배우기 그리고 실행하기의 계획 위에서 수행되었다.
학생들이 오전 중에 배운 것을, 오후 동안에는 해변에서
그들이 군중들에게 가르쳤다. 저녁 식사 후에는 그들이
허물없이 오전에 배운 것과 오후의 가르침에 대해
토의하였다.

148:1.2 (1658.1) 사도 선생 각자는 왕국 복음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가르쳤다. 그들은 똑같이 가르치려고 시도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거기에는 신학적 신조들의 표준화나 독단적인 형태가 없었다. 그들 모두가 같은 진리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도는 주(主)의 가르침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 해석을 발표하였다. 예수는 왕국의 일들에서 개인적 체험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것을 높이 사셨으며, 한편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의 질문 시간을 통하여, 그러한 다양한 복음에 대한 견해들을 조화시키고 조화-협동시키는 일을 반드시 진행하였다. 가르치는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상당한 개인적 해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의 영향력이 전도자 학교의 신학을 많이 지배하는 경향이 있었다. 베드로 다음으로는 야고보 세베대가 개인적 영향을 많이 발휘하였다.

148:1.3 (1658.2) 이 5개월 동안 해변에서 훈련을 받은 100여명이 넘는 전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그것으로부터 (아브너 그리고 요한의 사도들을 제외하고) 나중의 70명의 복음 선생들과 설교자들이 배출되었다. 전도자들의 학교는

12사도들이 했던 같은 등급으로 모든 것을 공동으로 가지지는 않았다.

148:1.4 (1658.3) 그들은 복음을 가르쳤고 설교를 했었지만, 이 전도자들은, 나중에 예수가 70명의 왕국 메신저들로 임명하기 전까지는,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 이곳에서 해 질 무렵에 치유를 받았던 큰 무리들 중에서 단지 7명만이 이 전도자 학생들에 포함되었다. 가버나움의 유명 인사의 아들은 베드로의 학교에서 복음 봉사를 위해 훈련 받은 자들 중의 하나였다.

제 2 장. 벳세다 병원

148:2.1 (1658.4) 해변의 야영지와 관련하여, 시리아인 의사인 엘만이 25명의 젊은 여자와 12명의 남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네 달 동안 왕국의 첫 병원이라고 여겨져야 될 기관을 조직하여 수행해 갔다. 천막 도시의 중심에서 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이 병원에서 그들은 기도와 신앙을 장려하는 영적 실천은 물론이고, 이미 알고 있는 물질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병든 자들을 치료하였다. 예수는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이 야영지로 병든 자들을 방문하였고, 고난당하는 자들 각자와 개인적으로 만났다.

우리가 아는 한, 고난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였던 1,000명의 사람들이 고침을 받거나 나음을 입어서 그 진료소를 떠났지만, 초자연적인 치유가 발생하는 기적에 의해서 나온 사람은 없었다. 그렇지만 혜택을 입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가 자신들을 고쳤다고 알리기를 그치지 않았다.

148:2.2 (1658.5) 예수가 엘만의 환자들을 위하여 한 그의 사명활동과 관련되어 효과를 보았던, 많은 치유들은 진정으로 기적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단지 신앙으로-지배된 개인들의 기대감의 체험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영의 변환이었을 뿐이었다고 통고받았으며, 그들이 강하고 긍정적이며 호의적인 개인성의 즉각적이고 영감어린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명활동으로 그들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걱정을 없애 주었던 것이었다.

148:2.3 (1658.6) 엘만과 그의 연관-동료들은 “악령들에게 사로잡힘”에 관한 진리를 이 병자들에게 가르치고자 노력했으나, 별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 당시에는 육신의 질병과 정신 착란은 괴로움을 당하는 자의

마음이나 몸속에 소위 더러운 영이라 불리는 것이 거함으로써 생길 수 있다는 믿음이 거의 보편적이었다.

148:2.4 (1659.1) 병든 자와 고난 받는 자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 치료의 기법이나, 알지 못하는 병의 원인을 계시하는 경우를 만났을 때, 예수는 유란시아 육신화의 모험을 착수할 때 자신의 파라다이스 형제인 임마누엘로부터 받았던 지시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를 돌보던 사람들은, 예수가 병든 자들과 고난 받는 자들의 신앙과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그 방법을 지켜봄으로서 많은 도움이 되는 교훈을 얻었다.

148:2.5 (1659.2) 그 야영지는 학질 병이 늘어나는 계절이 다가오기 바로 전에 해산되었다.

제 3 장. 아버지의 일

148:3.1 (1659.3) 이 기간 내내, 예수가 야영지에서 대중 예배봉사를 수행한 것은 12번이 되지 않았으며,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그들이 새로 훈련받은 전도자들과 함께 그들의 두 번째 갈릴리 대중 설교 여행을 떠나기 전 두 번째 안식일에 오직 한번 설교하였다.

148:3.2 (1659.4)

전도자들의 벧세다 훈련 야영지 시절 동안만큼 주(主)가 그렇게 많이 혼자 지내신 기간은, 세례를 받은 이후로 없었던 일이었다. 사도들 중의 누군가가, 예수께 어찌하여 그가 그들로부터 그렇게 자주 떠나가 있느냐고 대담하게 물을 때마다, 그는 변함없이 자기가 “아버지의 일에 관여하고”있다고 대답하였다.

148:3.3 (1659.5)

자리를 비우는 이들 기간 동안에, 예수는 사도들 중 오직 두 사람들만을 동반하였다. 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100명이 넘는 숫자의 새로운 전도자 후보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일시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동행자로서의 배정에서 해제하여 주었다. 주(主)가 아버지의 일에 관련하여 언덕으로 가려는 욕망이 일어날 때, 그는 자유로움에 있음직한 사도들 중에서 아무나 두 사람을 함께 가자고 부르곤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열두 사람은 각자 예수와 가까운 관계적-연합과 그리고 친밀한 접촉을 할 기회를 누렸다.

148:3.4 (1659.6)

이 기록의 목적으로 계시되어 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언덕에서 단독으로 있던 이들 여러 기간 동안에, 주(主)가 우주 관련사들을 맡고 있는 자신의 우두머리

지도자들과 직접 만나고 있었고 그리고 집행적인 관계적-연합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도록 인도되어 왔다. 그가 세례를 받았던 무렵 이후로는 내내, 우리 우주의 이 육신화된 주권자는 우주 관리-행정에서의 어떤 일정 위상의 지도에 점점 더 많이 그리고 의식하면서 활동적으로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견지하고 있는 의견은, 그가 지상의 관련사에 참여하는 일이 점점 감소하였던 이 몇 주 동안, 그의 즉각적인 연관-동료들에게 계시되지 않는 어떤 방식으로, 광대한 우주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저들 높은 영 지능존재들을 지도하는 일에 그가 종사되어 있었고, 그리고 인간 예수는 그러한 활동을 자신의 몫에서 “그의 아버지의 일에 관한 것”이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148:3.5 (1659.7) 여러 번, 예수가 여러 시간을 혼자 있었을 때, 그러나 그의 사도들 가운데 둘이 가까이에 있었을 때, 그들은 그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은 전혀 듣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의 모습이 재빠르게 그리고 다채롭게 변화를 겪는 것을 관찰하였다. 주(主)와 교통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천상존재들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현시활동도

그들은 관찰하지 못했고, 나중에 어떤 기회에서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이 목격하였던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은 없었다.

제 4 장. 악, 죄 그리고 불의한 사악

148:4.1 (1659.8) 매주 이틀 저녁은 세베대의 집 정원의 좀 외지고 아늑한 구석에서, 그를 개별적으로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대화를 가지는 것이 예수의 버릇이었다. 이러한 사적으로 하는 저녁 대화의 하나에서 어느 날 도마가 주(主)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였다: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왜 사람이 영에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합니까? 악한 자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면, 다시 태어남이 필요합니까? 주(主)여, 악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가 이러한 질문들을 들으시고 도마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148:4.2 (1660.1) “악과 악한 자, 더 정확하게 말해서 사악하게 불의한 자를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너희가 악한 자라고 부르는 그는 자아-사랑에 빠진 아들, 나의 아버지와 그의 충성스런 아들들의 통치에 대항하여, 알면서 의도적으로 반역을 행했던 높은 행정-관리자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이들 죄 많은 반역자들을 없앴다. 너희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와 그의 우주를 향하는 이들 전혀 다른 태도를 명확하게 해 두어라. 아버지의 뜻에 관계되는 다음과 같은 법칙들을 결코 잊지 말아라:

148:4.3 (1660.2) "악(惡)은 하느님의 뜻, 신성한 법칙을 무의식적이거나 의도하지 않고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악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데 있어서의 불완전성을 재는 척도와 같은 것이다.

148:4.4 (1660.3) "죄는 신성한 법, 아버지의 뜻을 의식적으로, 알면서, 그리고 숙고하여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죄는 신성하게 이끌리고 영적으로 인도되는 것에 반항하고 있음을 재는 척도이다.

148:4.5 (1660.4) "사악은 의지를 가지고, 완고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하느님의 뜻, 신성한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사악은 개인성의 생존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하는 계획과 아들의 자비로운 구원의 사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거절의 정도를 재는 척도이다.

148:4.6 (1660.5) "본성적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필사 사람은 선천적인 악한 경향에 지배되지만, 습성의 그러한

본성적 불완전성은 죄도 또한 사악한 불의도 아니다. 필사 사람이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아버지의 완전성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긴 상승 과정을 그곳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본성적 자질에서 불완전하거나 또는 부분적이 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참으로 악에 속박되지만, 어떤 의미에서도, 자기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의 길과 사악한 불의의 일생을 선택하지 않는 한, 결코 악의 자녀가 아니다. 악은 이 세상의 자연적 질서 안에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지만, 죄는 영적 빛에서 비천한 어두움으로 빠진 자들이 이 세상으로 가져 온 의도적인 반역의 태도이다.

148:4.7 (1660.6) “도마야, 너는 그리스인의 교리들과 페르시아인의 실수들 때문에 혼동되어 있다. 너는 사람이 완전한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시작해서, 그 후 죄를 지음으로 빠르게 현재의 한심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악과 죄의 관계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기록에서 어떻게 아담의 아들인 카인이 놋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얻었는가를 드러내는 기록의 의미를 어찌하여 이해하기를 거절하느냐? 그리고 또한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았다는 기록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어찌하여 피하려고 하느냐?

148:4.8 (1660.7) “사람들은, 참으로 본성으로 악하지만, 그러나
필연적인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 태어남—영에 의한
세례—은 악에서의 해방에 필수적이며,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의
아무 것도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그 가치를
손상시킬 수 없다. 그리고 잠재적 악의 이 선천적 현존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이방인, 외국인, 혹은
의붓자식이 되게 하였으며,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 대한
법적 양자권을 다시 어떤 식으로든지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또한 아니다. 모든 그러한 사상들은,
첫째로는 아버지에 대한 너희의 오해에서 왔고, 둘째로는
사람의 기원, 본성, 운명에 대한 너희의 무지에서 온
것이다.

148:4.9 (1660.8) “그리스인들과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게 사람은
독실한 완전함에서 출발해서 계속하여 망각 혹은 파멸
쪽의 내리막길을 달려왔다고 가르쳤으나; 나는 이제

사람들이 왕국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들이 확실하게 하느님께로 올라가고 있으며, 신성한 완전성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왔다. 영원한 아버지의 뜻의 신성하고 영적 이상에 어떤 식으로든지 다다르지 못한 사람은 잠재적으로는 악하지만,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죄를 범한 것이 아니며, 사악하게 불의한 것은 더 더욱 아니다.

148:4.10 (1661.1) “도마야, 성서에서 ‘너희는 주님 너희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겠고, 그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아들로 선택했으며,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고; 내 이름에 의해 불림을 받는 자들도 다 오게 할 것이니, 이것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하느님의 영을 가진 자는 진정으로 하느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기록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연적인 자녀에게 인간 아버지의 물질적 부분이 있는데 반하여, 왕국의 모든 신앙의 자녀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영적 부분이 있다.”

148:4.11 (1661.2) 이 모든 것과 더 많은 것을 예수가 도마에게 말씀하였으며, 그는 대부분을 이해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그래서 도마는 이 대화를 주(主)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시기 전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제 5 장. 고통의 목적

148:5.1 (1661.3) 정원에서 사적으로 상담하였던 다른 경우에, 나다니엘이 예수께 물었다: “주(主)여, 저는 왜 선생님께서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치유되도록 실천하기를 거절하는지 좀 납득이 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세상의 그렇게 많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게 하는지에 대하여 납득하기가 여전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主)가 나다니엘에게 다음의 말로 대답하였다:

148:5.2 (1661.4) “나다니엘아, 이 세상의 자연 질서가 얼마나 여러 번 특정한 반역자들의 죄 많은 모험들로 인하여 망쳐졌는지 네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혼동을 겪는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질서 있게 확립하는 것이 시작되도록 온 것이다. 우주 안에 있는 이 지역을 이전의 길로 회복시키고, 사람인 자녀들을 죄와 반역의 추가된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악의 현존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상승을 위한 충분한 시험이다—죄는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148:5.3 (1661.5) “그러나 나의 아들이,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만 한다. 사람이 신성한 뜻인 더 좋은 길에서 걸어갈 것을 끈질기게 거절한 결과로서 불필요한 고통을 그 자신위에 넘어트리고 있다. 고통은 악 속에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의 많은 것이 죄와 사악한 불의에 의해 생겨나온 것이다. 많은 예외적인 사건이 이 세상에서 일어났고, 모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목격하는 고통과 고난의 광경으로 혼동되어 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음의 한 가지는 확실한데: 아버지께서 그릇된 행동에 대한 독단적인 벌로써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불완전성과 악이라는 장애는 선천적이며, 죄에 대한 벌은 피할 수 없으며, 사악한 불의에 대한 파괴하는 결말은 굽힐 수 없다. 사람은 그가 선택한 일생의 자연스런

결과인 그러한 고통들에 대하여, 하느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일생의 한 부분인 그러한 체험들에 대하여, 불평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필사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처지가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끈질기게 그리고 변함없이 일해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지능적 적응은 사람이 그의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의 많은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148:5.4 (1662.1) “나다니엘아,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에 박차를 가하여, 복잡한 물질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그들을 좀 더 잘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네가 성서를 읽으면서 혼동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거기에서는 너무 자주, 무지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책임으로 돌려놓고 있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에 개인적 책임을 지는 분이 아버지가 아니시다. 네가 무심코 또는 신중히 그러한 신성한 법령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그가 제정한 의롭고 현명한 어떤 법이 너에게 우연히 고통을 준다고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그러나 나다니엘아, 만약 네가 분별력을 가지고 성서를 읽는다면, 그것은 너에게 많은 가르침들을 주고 있다. 다음과 같이 쓰인 글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 아들이, 주님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라; 그가 바로 잡아주는 것에 싫증내지도 마라, 이는 실로 아비가 그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 같이, 주님은 그가 바로 잡아주고 있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자진해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된 길을 걸었지만, 이제는 율법을 지킵니다. 고난이 내게 좋았으니 그것은 이로 인하여 내가 신성한 계명을 배웠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알고 있다. 영원한 하느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시니, 그 아래에는 영속하는 팔들이 있다.’ ‘주님은 또 압박 당하는 자의 피난처이시요, 파란만장의 시절에 휴식의 항구이시다.’ ‘주님은 고난의 침대 위에 있는 그에게 강한 힘을 주실 것이다; 주님은 병자를 잊지 않으신다.’ ‘아비가 자기 자녀들에게 동정심을 보이듯이 주님은 그를 두려워하는 자를 동정하신다. 그는 너희의 몸을 아신다; 너희가 티끌임을 기억하신다’ ‘그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가난한 자의 희망이시며, 고뇌

속에 있는 궁핍한 자의 강한 힘이시며, 폭풍으로부터
피난처시며, 불같은 더위로 부터 피하는 그늘이시다.’
‘그는 미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며, 아무 기력없는
자에게는 강한 힘을 키워주신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한다.’ ‘네가
고난의 강물을 두루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역경의 강물이 넘쳐 너를 덮칠 때에도, 나는 너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상심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통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라고 그가 나를
보내었다.’ ‘고통을 겪는 것 안에서 바로잡은이 있다;
고난은 티끌로 부터 솟구쳐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제 6 장. 고통에 대한 오해—욥에 대한 강연

^{148:6.1 (1662.3)} 같은 날 밤 벳세다에서, 요한이 예수께 왜 그렇게
명백하게 선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많은 고난을 체험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 요한에게 대한 대답으로 주(主)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148:6.2 (1662.4)} “아이야, 너는 재난의 의미와 혹은 고통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너는 셈족 문학의 걸작인 욥의

고난이라는 성서의 이야기를 읽지 못했느냐? 이 훌륭한 비유가 주님의 하인이 지닌 물질적인 번영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한 것을 읽지 못했느냐? 욕은 자식, 재물, 명예, 지위, 건강 등, 사람이 현세의 일생에서 가치를 두는 모든 것에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너는 잘 기억한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유서 깊은 가르침에 따르면, 그러한 물질적인 번영이 신성한 은혜라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그러나 그러한 물질적 소유물이나 그러한 현세의 번영이 하느님의 은혜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부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도 사랑하는 분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148:6.3 (1663.1) “신성한 법을 어기는 것이 조만간에 처벌이라는 추수를 거두고, 한편으로 사람들이 분명하게 결국에는 그들이 뿌린 것을 거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인간이 고통을 받고있는 것이 언제나 선행된 죄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이 아님을 늘 알아야만 한다. 욕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의 건잡을 수없는 혼란에 대한 참된 해답을 찾아내는데 실패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즐기고 있는 빛을 가지고는, 너희는 이 독특한 비유에서 그들이 상연하는 부분 부분들을 사탄의 역할로 돌리기도 힘들고

하느님의 역할로 돌리기도 힘들 것이다. 욥이, 고통을 당하면서 두루, 그의 지적(知的)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나 혹은 그의 철학적 어려움의 해결을 찾아내지 못했어도, 그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자신의 신학적 방어가 부서지는 바로 그 면전에 이르러서도, 그는 '나는 내 자신이 몹시 싫다.'라고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높이로 상승했다; 그런 다음 그에게는 하느님의 환상을 보는 구원이 허락되었다. 그렇게 비록 잘못 납득된 고통을 통해서도, 욥은 도덕적 납득과 영적 통찰력에서의 초인간적 경지로 상승했다. 고통을 받는 하인이 하느님의 환상을 얻으면, 거기에는 모든 인간의 납득을 초월하는 혼의 평화가 뒤따른다.

148:6.4 (1663.2) "욥의 첫 친구인 엘리바스는 고통받는 자에게, 그가 번영을 누리던 시절에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처방해 주었던 바로 그 꾀꾀함을, 그의 환난 속에서 똑같이 드러내 보이라고 강력하게 권유하였다. 이 거짓 위로자는 말하였다: '욥이여, 너의 종교를 신뢰하라. 고통을 받는 자는 사악한 자이며, 정의로운 자가 아님을 기억하라. 너는 이 처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 있었음이 틀림없으니, 그렇지 않으면, 너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느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너는 잘 알고 있다. 결코 사악한 자는 실제로 변영할 수 없음을 네가 알고 있다. 어쨌든 사람은 곤란을 겪는 운명으로 정해진 것처럼 보이고, 아마도 주님께서 단지 너에게 좋으라고 너를 응징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불쌍한 욕이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문제에서의 그러한 해석으로부터 큰 위로를 얻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148:6.5 (1663.3) “그러나 그의 두 번째 친구 빌닷의 조언은 그 당시 인정받던 신학의 입장에서는 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우울한 것이었다. 빌닷이 말하였다: ‘하느님은 의롭지 않으신 분이 될 수 없다. 너희의 자식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죄인이었음에 틀림없다. 너는 어떤 실수를 저질렀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할 리가 없을 것이다. 만약 네가 실제로 의롭다면, 하느님은 분명히 너의 고난으로부터 너를 구할 것이다. 전능자는 단지 악한 자만을 없앤다는 것을 너는 하느님이 사람을 다루신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148:6.6 (1663.4)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욕이 그의 친구들에게 대답했는지를 너는 기억한다. 그는 말하였다: ‘하느님이

도움을 청하는 나의 외침을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어떻게 하느님이 의로우시며, 동시에 그렇게 나의 무죄를 모른 척 할 수 있으신가? 내가 전능자에게 호소해도 아무 만족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선한 자가 악한 자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을 하느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너희는 식별할 수 없겠느냐?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악한데, 전능한 하느님의 손에서 어떤 것을 우연이라도 배려받기를 바라겠느냐? 하느님께서 오늘의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그렇게 나를 버리셨으니, 나는 막을 재간이 없다. 어찌하여 하느님이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고통을 받도록 나를 만드셨단 말이나?”

148:6.7 (1663.5) “그리고 그의 친구들의 조언과 그 자신의 마음을 차지했던 하느님에 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관념에 비추어볼 때, 누가 욥의 태도에 도전할 수 있는가? 욥은 인간으로서의 하느님을 갈구하고 있었으니, 그가 사람의 필사자 처지를 알고, 긴 파라다이스상승의 이 첫 번째 일생의 한 부분으로서 때때로 올바른 자가 결백한 가운데 고통 받아야 함을 납득하는 그런 신성한 존재와의 교제에 굶주렸다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런 까닭으로 인하여 사람의 아들이, 이제부터 욥의 고통을 참아내도록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저들 모든 이를 위로하고 구조할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내려왔다.

148:6.8 (1663.6) “욥의 세 번째 친구 소팔은 그보다 더 위로가 안 되는 말을 이렇게 하였다: ‘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뻔히 보이는 데, 자신이 옳바르다고 주장하는 네가 어리석다. 그러나 하느님의 길을 이해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아마도 너의 모든 비극에는 어떤 감추어진 목적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세 친구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욥은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목숨이 길지 않고, 어려움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탄원하면서 하느님께 직접 도움을 간청하였다.

148:6.9 (1664.1) “그리고 나서 그의 친구들과의 두 번째 상담이 시작되었다. 엘리바스는 점점 더 엄하고, 비난적이고, 조소적이 되었다. 빌닷은 욥이 친구들을 경멸하자 기분이 상했으며, 소팔은 그의 우울한 조언을 다시 반복하였다. 이때쯤에는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혐오감을 느꼈으며, 그래서 하느님께 다시 청원하였다. 이제 그는 그의 친구들의 철학으로 체현되고, 그 자신의 종교적 태도로

둘러싸인 불공정의 하느님에 대항하기 위하여, 의로우신 하느님께 간청하였다. 다음으로 욥은, 필사자 실존의 불공평이 의롭게 수정되어질 평안한 미래의 일생으로 피난처를 삼았다. 사람으로부터 도움 받음의 실패가 욥으로 하여금 하느님을 찾게 만들었다. 그런 후에 그의 가슴 속에서 신앙과 의심의 큰 갈등이 뒤 따랐다, 마침내, 괴로움의 인간은 생명의 빛을 보기 시작하였으며, 그의 고통 받은 혼이 희망과 용기의 새로운 높이로 올라갔다. 그는 계속 고통을 겪고 죽기까지 할지도 모르나, 그의 깨우친 혼은 이제 '나를 옹호해 주시는 이가 살아계신다!'라는 승리의 외침을 하였다.

148:6.10 (1664.2) "하느님이 그들의 부모를 벌하기 위하여 그 자식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교리에 욥이 도전하였을 때, 그는 참으로 옳았다. 욥은 언제나 하느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시인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영원자의 개별적 성격이 드러나는 혼이-만족하는 계시를 갈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사명이다. 어떤 고통당하는 필사자도,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를 납득함으로서 얻는 위안을 더 이상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회오리 바람으로부터 하느님이

말씀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있던 당시의 장엄한 개념이었지만, 너희는 이미 아버지께서 자신을 그런 식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오히려 그는 인간의 가슴 안에서 조용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한다: ‘이것이 그 길이다, 그곳으로 걸어라.’ 하느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는 것, 너희를 자기처럼 만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려고 해 오셨다는 사실을 너희는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냐!”

148:6.11 (1664.3) 그런 후에 예수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람들의 자식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기꺼이 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첫째로,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와 그리고 미숙한 육체적 실존이라는 악(惡)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다. 그 다음으로, 냉혹한 죄의 결과—생명과 빛의 법칙을 어김—로 고통을 겪는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의로운 하늘의 원칙에 반역 안에서, 그 자신의 사악하게 불의한 끈질긴 지속의 결실을 거둔다. 그러나 사람의 비참함은 신성한 심판이 개인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자신의 현세의 고통을 훨씬 감소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의 요청에 따라 하느님이

사람을 괴롭힌다는 미신으로부터 단호하게 구제될 것이다. 하느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그릇된 관념들이 선한 사람에게까지도 정직하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읊기를 읽어 보라. 그리고 나서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고난당하던 읊까지도 어떻게 하여 위안과 구원의 하느님을 발견했는지 유의하라. 마침내 그의 신앙이 치유의 자비와 영속하는 정의로움의 아버지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생명의 빛을 알아보고 고통의 구름을 뚫고 나갔다.”

148:6.12 (1664.4) 요한은 가슴 속에서 여러 날 동안 이러한 말들을 숙고하였다. 그의 전 삶 그 정원에서 주(主)와 가진 이 대화의 결과로 현저히 변화되었다. 그는 나중에 가서 다른 사도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인간 고난들의 근원, 성질, 목적에 대하여 그들의 견해를 바꾸는데 많이 기여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주(主)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는 결코 이 대화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제 7 장. 손 마른 사람

148:7.1 (1664.5) 사도들과 새 전도자들 집단이 두 번째 갈릴리 설교 여행을 떠나기 전 두 번째 안식일에, 예수는 “의로운

삶의 기쁨"에 대하여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였다. 예수가 말씀을 끝마쳤을 때, 불구된 자, 절름발이, 병자, 고난당하는 자들의 큰 무리가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를 둘러싸며 모여 들었다. 또한 그 무리 속에는 사도들과 새로 된 전도자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첩자들도 섞여 있었다. 예수가 가는 곳은 어디에나(아버지의 일을 하러 언덕으로 갔을 때를 제외하고) 여섯 명의 그 예루살렘 첩자들도 항상 따라갔다.

148:7.2 (1665.1) 예수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서있을 때, 바리새인 첩자들의 영도자가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께 가까이 가서 안식일에 치료 받는 것이 법적인지, 아니면 다른 날에 도움 받기를 구해야 하는지 물어보라고 시켰다. 예수가 그 사람을 보고,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가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내졌음을 감지하면서 말씀하였다: "내가 너에게 물어 볼 것이 있으니, 앞으로 나오너라. 너에게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네가 손을 아래로 뻗어 그것을 구해 내겠느냐?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적법한 일이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主)여,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그러자 예수가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였다:

“너희가 왜 이 사람을 내 앞에 보냈는지를 나는 알고 있다. 너희가 나로 하여금 안식일에 자비를 베풀도록 하여 나를 혈뜯기 위한 원인을 찾으려 하고 있다. 속으로는 너희 모두가 안식일이라도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 올리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증명하겠는데,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안식일에 사랑과-친절함을 베푸는 것이 적법한 일이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내가 선포하겠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들 모두가 그의 앞에 조용히 서 있자, 예수가 마른 손을 가진 사람에게 향해서 말씀하였다: “모두가 너를 볼 수 있도록 내 옆으로 와서 여기 서라. 이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나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신앙이 있으면, 내가 명하겠는데, 너의 손을 내밀어라.”

148:7.3 (1665.2) 이 사람이 자기의 마른 손을 내밀자, 그 손이 회복되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혼내주려고 마음을 품었지만, 예수는 그들을 조용히 시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였다: “내가 방금 너희에게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해를 가하거나 죽이려는 가슴을 품으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화가 난 바리새인들은 떠나갔다.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티베리아스까지 서둘러 가서 헤롯과 상의하였고, 헤롯 집안이 예수와 반목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편견을 일으킬 만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헤롯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불평을 하라고 충고하면서, 예수에 대한 어떤 행동도 취하기를 거절하였다.

148:7.4 (1665.3) 이것이 그의 적들의 도전에 응답하여 예수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이었다. 주(主)가 기적이라 불리는 이 일을 행한 것은 자신의 치료의 힘을 실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종교의 안식일 휴식에 대해 억압을 가하여 의미 없는 사실상의 굴레로 만든 것에 반대하여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람은 자신의 직업인 석공의 일로 다시 돌아갔으며, 그 치유로 인한 감사와 정의로움의 일생을 살았던 사람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제 8 장. 벧세다에서의 마지막 주간

148:8.1 (1665.4)

벧세다에서 머물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첩자들은 예수와 그의 가르침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대해
분열이 일어났다. 세 명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에 굉장한 감명을 받았다.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산헤드린의 젊고 영향력 있는 의원인 아브라함이
공개적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지지하였고, 실로암
연못에서 아브너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모든 예루살렘이
이 사건으로 떠들썩해졌고, 메신저들이 곧 벧세다로 여섯
명의 바리새인 첩자들을 소환하러 파견되었다.

148:8.2 (1666.1)

전에 있었던 갈릴리의 여행에서 왕국을
받아들였던 그리스 철학자가 알렉산드리아의 부자인 어떤
유대인과 함께 돌아왔다. 그들은 다시 한 번 병자들을 위한
병원은 물론이고 철학과 종교의 합작 학교를 세우는
목적으로 예수를 그들의 도시로 초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공손하게 그 초청을 거절하였다.

148:8.3 (1666.2)

이 무렵에 바그다드로부터 커르메스라는
최면현상의 선지자가 벧세다 야영지에 도착하였다.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이 사람은 최면현상에 들어가면
이상한 환상들을 보았으며, 그의 잠이 방해가 될 때는

환상적인 꿈들을 꾸었다. 그는 야영지에서 상당한 소동을 피웠다. 그래서 시몬 젤로떼가 자아-기만에 빠진 이 현학자를 다소 엄하게 다스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가 중재하여 그가 며칠 동안 모든 자유를 갖도록 허락하였다. 그의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왕국 복음으로 판단하여 볼 때,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그는 단지 여섯 명의 불안정하고 정상이 아닌 혼들을 데리고, 곧 바그다드로 돌아갔다. 예수가 바그다드 선지자를 위해 미처 손을 쓰시기도 전에, 다윗 세베대가 자아-임명한 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커르메스를 호수로 데려가서 여러 번 물속으로 그를 처넣은 후에, - 자신만의 캠프를 조직하고 세우기 위해-그 곳을 떠나라고 조언하였다.

148:8.4 (1666.3) 같은 이 날에 페니키아 여인인 베스마리온이 너무나 열광하여 정신이 나갔고, 물 위를 걸으려고 시도하다 거의 물에 빠질 뻔 한 후에, 그녀의 친구들에 의해 돌려보내졌다.

148:8.5 (1666.4) 예루살렘의 새 개종자인 바리새인 아브라함이 그의 세상에서의 재물들 모두를 사도 기금으로 바쳤으며,

이 기부금으로 그들은 100 명의 새로 훈련된 전도자들을
즉각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많은 기여를 하였다.
안드레가 이미 야영지를 달한다고 발표하였고, 모든
사람들은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갈릴리로 전도자들을
따라 갈 준비를 하였다.

제 9 장. 중풍 병자를 고치심

148:9.1 (1666.5) 10월 1일 금요일 오후에 예수가 사도들, 전도자들,
그리고 야영지(野營地)를 해산시키는 영도자들과 함께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여섯 명의
바리새인들도 세베대의 집에 널찍하고 크게 트여진 맨
앞의 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앞자리에 함께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의 모든 이 세상 일생에서 가장 이상하고
특이한 에피소드중의 하나가 발생하였다. 이때에,
주(主)는 비가 내리는 이 계절에 이러한 모임들로 사용하기
위하여 세운 큰 방에 서서 말씀하고 있었다. 그 집은 예수의
강연을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던 수많은
사람들로 전반적으로 에워싸여 있었다.

148:9.2 (1666.6) 그 집이 사람들로 가득 차고 열성스런 청중들에
의해 전반적으로 둘러 싸여 있는 동안에, 중풍병으로 오래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이 친구들에 의해 침상에 누운 채로 가버나움으로부터 왔다. 이 중풍 병자는 예수가 벳세다를 떠나려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최근에 그렇게 온전하게 된 석공인 아론과 이야기를 한 후, 그가 치유를 구할 수 있는 장소인, 예수의 현존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가 고쳐지도록 하기로 작정하였다. 그의 친구들은 앞문과 뒷문 양쪽을 통하여 세베대의 집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사람들로 너무 많이 붐비고 있었다. 그러나 중풍 병자는 실패를 용납하려 하지 않았으며, 그의 친구들에게 사다리를 가져다 예수가 말하고 있는 방의 지붕으로 올라가도록 지도하였다. 기와를 벗기고 그들은 대담하게 침상채로 그 병자를 줄에 매달아 주(主)의 바로 앞바닥에 내려놓았다. 예수가 그들의 행동을 보고 말을 중단하였고, 한편 그 방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 병자와 친구들의 인내에 감탄하였다. 중풍 병자가 말하였다: "주(主)여, 당신의 가르침을 방해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낫게 되기를 꼭 원합니다. 저는 고침을 받아들이고 바로 당신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저들과는 다릅니다. 제가 하늘의 왕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갖추어지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 사람의 고난이 그 자신의 잘못 산 일생으로

인하여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본 예수가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였다: “아들아, 두려워 마라, 너의 죄는 용서된다. 너의 신앙이 너를 구할 것이다.”

148:9.3 (1667.1)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그들과 함께 앉아 있던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함께 예수의 이 발표를 들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하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담하게 말하는가? 그러한 말이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는 모르는가? 하느님 이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들의 각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그렇게 따져보는 것을 예수가 그의 영으로 감지하고 말씀하였다: “너희는 가슴 속에서 어째서 그렇게 따져보느냐? 너희가 누구이기에 나를 비판하는 자리에 앉느냐? 내가 이 중풍 병자에게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하겠다.” 예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중풍 병자는 일어났으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길을 비켜주자 그들 모두 앞에서 걸어 나갔다. 이 일을 목격한 모든 자들이 놀랐다. 베드로가 무리들을

해산시켰으나, 많은 자들이 기도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그렇게 기이한 일은 이전에는 결코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였다.

148:9.4 (1667.2) 이 무렵에 산헤드린의 메신저들이 여섯 첩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전갈을 가지고 도착하였다. 그들이 이 전갈을 들었을 때, 그들 안에서는 심각한 토론이 벌어졌는데, 그들이 그들의 토의를 완결한 이후, 영도자와 두 사람이 메신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세 명의 바리새인 첩자들은 예수께 신앙을 고백하고 바로 호수로 가서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았으며, 사도들에 의해 왕국의 자녀로서 연관-동료관계를 갖게 되었다..

제 149 편 두 번째 설교 여행

149:0.1 (1668.1)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대중 설교 여행은 서기 28년 10월 3일 일요일에 시작되어 세 달 동안 계속하여 12월 30일에 끝이 났다. 예수와 12사도들은 새로 뽑은 117명의 전도자 집단과 수많은 다른 관심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이 일을 진행했다. 이 여행을 통하여 그들은 가다라, 프톨레마이스, 야피아, 다바리타, 메기도,

예즈릴, 스키토폴리스, 타리케아, 히포, 가말라, 벳세다-
줄리아스, 그리고 많은 도시들과 마을들을 방문하였다.

149:0.2 (1668.2) 이 일요일 아침 떠나기에 앞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께 새 전도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내려 달라고
청했으나, 주(主)는 사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자기 몫이 아니라고
말씀하였다. 충분한 토의 끝에 야고보 세베대가 그 임무를
관리-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야고보의 말이 결론에 이를
때에 예수가 전도자들에게 말씀하였다: “너희가 나가서
너희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라. 나중에 너희가 힘 있고
신실하다는 것을 보이면,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왕국
복음을 설교하도록 임명하겠다.”

149:0.3 (1668.3) 이 여행에서는 단지 야고보와 요한만이 예수와
동행하였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각각은 약 12명에
달하는 전도자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설교와
가르치는 그들의 일을 수행하는 동안 그들과 밀접한
접촉을 유지하였다. 신자(信者)들이 왕국으로 들어올
준비가 되자마자, 사도들은 그들에게 세례를 실시하였다.
예수와 두 동행자들은 이 세 달 동안 광범위하게

여행하였다. 그들은 때로는 하루에 두 도시를 방문하면서 전도자들의 활동을 돌보고, 왕국을 건설하려는 그들의 노력에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 두 번째 설교 여행은 주로 새로 훈련받은 117명 각자에게 실천적인 체험을 잘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었다.

149:0.4 (1668.4) 이 기간 그리고 나중에 예수와 12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출발을 할 당시까지 내내, 다윗 세베대가 그의 아버지 집인 벳세다에서 왕국의 사업을 위한 영구(永久) 본부를 세워 놓고 꾸려나갔다. 이것은 다윗이 팔레스타인의 여러 지역과 그 주변의 지역 사이에서 수행하던 메신저 봉사를 위한 연결 본부인, 이 세상에서의 예수의 일을 위한 정보교환 장소였다. 그가 이 모든 일을 안드레의 승인만을 얻어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었다. 다윗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확대되는 왕국의 일에서 정보 담당 소속으로 40 내지 50명의 전령들을 고용하였다. 그런 식으로 일을 맡아보면서, 그는 자신의 옛 직업인 고기를 잡는 일에도 때때로 종사하여, 일부나마 자기 자신의 경비를 충당하였다.

제 1 장. 널리 퍼진 예수의 명성

149:1.1 (1668.5)

벧세다의 야영지가 해산될 무렵에는 예수¹의 명성, 특히 병 치유자로서의 명성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위시하여 시리아와 주변 모든 지방들에 퍼져 나갔다. 그들이 벧세다를 떠난 후 수주일 동안에도 병자들이 계속하여 그곳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주(主)를 만나지 못했을 때, 다윗으로부터 주(主)가 계신 곳을 알아낸 후 그를 찾아가곤 하였다. 이 여행에서 예수는 의도적으로 소위 기적이라고 불리는 치유를 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받는 수십 명이 그들로 하여금 치료를 간구하도록 재촉했던 집중적 신앙의 재활하는 힘의 어떤 결과에 따라 그대로 건강과 행복을 되찾게 되었다.

149:1.2 (1669.1)

이 무렵에—그리고 예수¹의 나머지 이 세상 일생을 통하여 계속하여—이상하고도 설명되지 않는 치유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세 달 동안의 여행에서 유대, 이두미아, 갈릴리, 시리아, 티레, 시돈 그리고 요단강 너머에 있는 지방에서 온 100명이 넘는 남녀들과 아이들이 예수에 의해서 무의식적인 치유의 혜택을 입었다. 그리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¹의 명성을 더욱 높였다. 예수가 무의식적인 치유가 일어날

때마다 혜택을 본 자들에게 직접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문을 내고 다녔다.

149:1.3 (1669.2) 이러한 자연발생적이고 무의식적인 치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 몇 번의 경우에서 단지 “기세가 나로부터 나간 줄을 내가 안다.”라고 그가 말씀했던 것을 제외하면, 주(主)는 한 번도 이러한 치유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사도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 한 번은 병든 아이가 그에게 손을 대자 “생명이 나로부터 나간 줄을 내가 안다.”라고 주(主)가 말씀하였다.

149:1.4 (1669.3) 이러한 무의식적인 치유의 성질에 관하여 주(主)가 직접적인 말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었는지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주제 넘는 일인 줄 알고 있지만, 그러한 모든 치유의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기록하는 것은 허용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의 이 세상 사명에서 발생했던 이러한 뚜렷한 치유의 기적은 다음 세 가지의

강력하고 효력 있고 연관된 영향이 공존했던 결과인 것 같다:

149:1.5 (1669.4) 1. 순전히 육체적인 회복보다는 영적 은혜를 위해 그러한 치유가 갈구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끊임없이 고침 받기를 갈망하는 인간존재의 가슴 안에 내재해 있던 강하고 지배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의 현존.

149:1.6 (1669.5) 2. 거의 무제한적이고 무시간적인 창조적 치유의 능력들과 특권들을 그의 개인 안에 실재로 소유하고 있는, 육신화하고 자비가-지배하는 하느님의 창조자 아들의, 그러한 인간의 신앙과 공존하는, 큰 동정심과 연민의 실존.

149:1.7 (1669.6) 3. 창조체의 신앙과 창조자의 일생과 더불어 또한 이 하느님-사람이 아버지의 뜻의 개인화(個人化)된 표현이라는 점도 주목해야만 한다. 만약에 인간 필요의 접촉과 신성한 능력이 만날 때, 아버지의 반대만 없었으면 그 두 가지는 하나가 되었고, 치유는 인간 예수에게는 무의식적인 가운데 발생했지만, 그의 신성한 본성으로는 즉각적으로 인지되었다. 이러한 많은 치유의 경우들은 우리가 오래 알아 온 하나의 위대한 법칙, 창조자 아들이

원하고 영원한 아버지가 뜻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법칙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

149:1.8 (1669.7) 그렇게 해서, 예수의 개인적 현존에서는, 특정한 형태의 인간의 심오한 신앙이, 특정한 창조적 기세와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의 아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우주의 개인성들에 의한 치유의 현시활동 안에서, 문자 그대로의 진정으로 강요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자주 그의 현존 안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강렬한 각자의 신앙으로 자신들의 병이 고쳐도록 하였다는 기록은 사실이다.

149:1.9 (1670.1) 다른 많은 이들은 전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병 고침을 구하였다. 티레의 부유한 과부는 시종들과 함께 그녀의 병을 고치러 왔었는데, 그녀에게는 여러 가지의 병이 있었다. 그녀는 하느님의 힘이 가장 돈을 많이 내는 자에게 팔리는 어떤 물건인 것처럼, 갈릴리 지방의 여기저기를 예수를 따라 다니면서 점점 더 돈을 많이 내겠다는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한 번도 왕국 복음에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으며, 단지 그녀가 찾았던 육신의 병을 고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제 2 장. 사람들의 태도

149:2.1 (1670.2) 예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납득하였다. 그는 사람들의 가슴에 품고 있는 생각을 아셨으며, 그의 가르침이 그가 가르친 그대로 그들 안에 남아있도록 하였다. 자신의 이 세상 일생에 의하여 잘 제공된 영감 받은 해석만이 유일한 주석이 되어 모든 민족과 모든 세상의 종교가 신속하게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좋은 의도를 가졌던 예수의 초기 추종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특정한 민족, 인류, 종교에 좀 더 쉽게 받아들여지도록 한 노고는 단지 그러한 가르침들로 하여금 모든 다른 민족, 인류, 종교에는 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149:2.2 (1670.3) 사도 바울은 예수의 가르침이 그 당시의 특정한 집단에게 쉽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시와 교훈을 주는 많은 편지들을 썼다. 예수의 복음을 가르쳤던 다른 선생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누구도 이러한 글들의 일부가 나중에 가서, 예수의 가르침을 체현한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저들에 의하여, 한군데 모아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도교라고 불리는 것에 주(主)의 복음이 다른 종교에서보다는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또한 예수가 가르치지

않은 것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페르시아 신비주의의 많은 가르침과 그리스 철학의 많은 것들이 초기 그리스도교에 들어온 것 말고도, 거기에는 두 가지의 큰 오류가 범해졌다:

149:2.3 (1670.4) 1. 복음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유대의 신학에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그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교의 속죄의 교리—예수가 아버지의 엄한 공의를 만족시키며 또한 신성한 분노를 완화시켜주는 희생양으로서의 아들이라는 가르침—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은 왕국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좀 더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에서 나왔다. 이러한 노력이 유대인들을 이겨보려는 데에서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후세 세대에서 많은 정직한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고립되게 하는 데에서는 실패하지 않았다.

149:2.4 (1670.5) 2. 주(主)의 초기 추종자들의 두 번째의 큰 실책은 완벽하게 예수 개인에 관해서 그리스도교 가르침을 조직한 것이었는데, 모든 후세 세대들이 영속으로 이 오류를 끈질기게 계속했다.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예수의

개인성에 관한 과잉 강조는 그의 가르침을 흐리게 하였으며, 이 모든 것이 유대인, 모하멧 교도, 힌두인, 다른 동방의 종교가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을 좀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의 이름을 받드는 종교에서 예수 개인의 위치를 경시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러한 배려가 그의 영감 어린 일생을 가리고 그의 구원의 메시지—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람의 형제신분—를 대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149:2.5 (1670.6) 예수의 종교의 선생들은 다른 종교를 다루면서 그들의 차이점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삼가는 한편, 공통으로 갖는 진리(많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예수의 메시지에서 왔음)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

149:2.6 (1671.1) 특정한 그 당시에, 예수의 명성은 주로 병 고치는 자이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그의 도움을 그에게 구하러 찾아왔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을 가장 많이 즉각적으로 끌었던 것은 역시 육체의 병 고침을 통해서였다. 점점 더 도덕적 노예가 된 희생자와 정신적

질환자들이 예수를 찾았으며, 그는 늘 해방의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아버지들은 아들들을 기르는 것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고, 어머니들은 딸들을 기르는 것에 대한 도움을 청하였다.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이 그에게로 나왔으며, 그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보여주었다. 그의 귀는 언제나 인간들의 슬픔을 향해 열려 있으면서 그의 사명활동을 구하는 자들을 도왔다.

149:2.7 (1671.2) 창조자 자신이,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육신화 되어있을 때, 어떤 비상한 일들이 발생해야했던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위 기적의 행함을 통하여 예수께 접근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예수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배워야지, 기적을 통하여 예수를 알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이러한 교훈은 나사렛 예수가 이 세상에서 초(超)물질적인 행동을 행한 유일한 종교적 창시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다.

149:2.8 (1671.3) 이 세상에서 미가엘에 대한 가장 놀랍고도 혁명적인 면모는 그가 여인들을 대하는 태도였다. 공공 장소에서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까지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아야 했던 시절에, 예수가 대담하게 그의 세 번째 갈릴리 여행과 관련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여인들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여자에게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태워버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랍비의 가르침 아래에서 그가 이런 일을 행한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용기를 필요로 하였다.

149:2.9 (1671.4) 한 세대를 통하여 예수는 멸시 당하면서 잊혀서 사는 그 시대의 노예와 같은 고난에서 여자들을 들어 올렸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것으로 믿어지는 종교의 후세의 세대들이 그들의 태도에서 여자에 대한 이 고귀한 모범을 따를 용기를 잃은 것은 참 애석한 일이다.

149:2.10 (1671.5) 예수가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예수가 그 시절의 미신으로부터 전혀 매어있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그에게는 종교적 편견이 없었으며, 인내심이 강하였다. 그의 가슴속에서 그는 사회적 반목은 그 비슷한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았다. 그는 선조들의 종교에서 좋은 점을 취하고, 한편으론 사람이 만든 미신과 속박의 전통을 무시하는 일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 그는 대담하게 자연의 큰 재해, 뜻밖의 사고, 기타 비참한 재앙들이 신성한

심판이거나 신비스러운 신(神)의 뜻이 펼쳐진 섭리가 아니라고 가르쳤다. 그는 의미 없는 의식에 노예처럼 헌신하는 것을 비난하였으며, 물질적 경배의 오류를 폭로하였다. 그는 과감하게 사람의 영적 자유를 선포하였으며, 육신의 필사자들이 진정으로, 진실로 살아 계신 하느님의 자녀들이라고 대담하게 가르치셨다.

149:2.11 (1671.6) **예수가 참된 종교의 표시로 청결한 손 대신에 청결한 가슴으로 대담하게 대체하였을 때, 그는 선조들의 모든 가르침을 초월하였다. 그는 전통의 자리에 실체를 놓았고 그리고 허영과 위선의 모든 허식을 쓸어 버렸다. 그럼에도 이 두려움 없는 하느님의 사람은 파괴적인 비난의 말이나 혹은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관례에 대한 전직인 무시를 현시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호전적인 혁명가가 아니었다; 그는 진보적인 진화론자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되어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우월한 것을 동시에 제공할 때에만 오직 이미 있는 것들의 파괴에 들어갔다.**

149:2.12 (1672.1) **예수는 추종자들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복종을 받아들였다. 그의 개인적인 부름을 받은 자 중에서**

단지 세 사람만이 제자신분에 대한 초청을 받아들이기 거절했다. 그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특출한 힘을 행사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독재적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에 넘쳐 명령하였지만, 누구도 그의 명령에 분개하지 않았다. 그는 제자들 위에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결코 누구도 항의하지 않았다. 그는 추종자들이 자신을 주(主)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였다.

149:2.13 (1672.2) 주(主)는 종교적 편견에 깊이 빠진 자들이거나 그의 가르침에서 정치적 위험을 느끼는 자들을 제외하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탄복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의 기원성과 권위에 깜짝 놀랐다. 그들은 우둔하고 성가신 질문자들에게 인내심으로 대하는 그의 태도에 경탄하였다. 그는 자신의 활동 영역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그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만이 그를 두려워하였으며,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들의 가슴속에 붙들고 있으려고 결심한 악과 실수를 뒤집어엎도록 운명되어진 진리의 투사라고 예수를 여기었던 사람들만이, 그를 증오하였다.

149:2.14 (1672.3) 그는 친구들이나 적들 모두에게 강력한, 그리고 이상하게 매혹적인 영향을 끼쳤다. 단지 그의 우아한 말을 듣고 그의 단순한 일생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몇 주 동안 그의 뒤를 따랐다. 헌신적인 남녀들이 거의 초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였다. 그들이 그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 더 그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사실로 남아 있다. 오늘날 그리고 미래의 세기에서까지도 사람들은 이 하느님-사람을 좀 더 알면 알수록, 그를 더 사랑하고 더 따르게 될 것이다.

제 3 장. 종교 영도자들의 적개심

149:3.1 (1672.4) 일반 사람들은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종교 영도자들은 점점 더 경계심과 반목을 일으키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은 조직적이고 독단적인 신학을 형성했는데, 예수는 기회가 일어나는 대로 가르침을 베푸는 선생이었고, 조직적인 선생이 아니었다. 예수는 법으로부터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생으로부터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했을 때, 그는 그 목적을 위한 이야기의 단 한가지만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였다. 예수의 가르침에 관한 많은 그릇된 관념이 그의 비유로부터 우화를 만들려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149:3.2 (1672.5) 예루살렘 종교 영도자들은 최근에 젊은 아브라함이 개종했던 사건과 세 명의 첩자들이 탈락한 후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제 갈릴리의 두 번째 설교 여행에 전도자로 나간 사건의 결과로 거의 광란적인 상태에 있었다. 유대인 영도자들은 점점 더 두려움과 편견으로 인하여 눈이 멀어 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가슴이 왕국 복음의 심금을 울리는 진리를 계속하여 배척함으로 인해 굳어져 갔다. 사람이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영의 호소를 차단하여 잠귀 버릴 때, 거기에는 그들의 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149:3.3 (1672.6) 예수가 처음 벳세다 야영지에서 전도자들과 만났을 때, 자신의 말을 결론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육체와 마음—감정적으로—속에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똑같은 형태인 것은

내주하는 영뿐이다. 신성한 영들이 그들의 체험의 성향과 정도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할지라도, 그들은 모든 영적 호소에 똑같은 형태로 반응한다. 오직 이 영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것의 호소에 따름으로써 인류는 언제나 화합과 형제애를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유대의 많은 영도자들은 복음의 영적 호소에 그들의 가슴의 문을 닫았다. 이 날로부터 그들은 주(主)를 없애려는 계획과 음모를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가 종교적 범죄자, 유대의 성스런 율법의 기본 가르침을 위반한 자로서 체포되어 유죄 선고를 받아 처형되어야한다고 믿었다.

제 4 장. 설교 여행의 진전

^{149:4.1 (1673.1)} 이 설교 여행에서 예수는 대중을 위한 일을 거의 하지 않았으나, 야고보와 요한과 우연히 머물게 된 대부분의 도시나 동네에서는 신자들과 많은 저녁 교실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저녁 수업시간 중에 한 번은, 나이 어린 전도자가 예수께 분노에 관해서 질문하자, 주(主)가 대답했던 여러 말씀 중에서도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149:4.2 (1673.2)} “분노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통합된 지적(知的) 육체적 본성에 대한 통제를 이루어 보려는 영적 본성에서

그 실패를 재어볼 수 있는 물질적 현시활동이다. 분노는 너그러운 형제로서의 사랑에 대한 너의 부족함과 여기에 너의 자아-존중과 자아-통제에 대한 부족함이 합해진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분노는 건강을 해치고 마음을 저하시키며 사람 혼의 영적 선생에게 장애가 된다. '분노가 어리석은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과 사람이 '분노 안에서 스스로 상처를 낸다.' 또한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나,' 한편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라는 글을 너희가 성서에서 읽지 않았느냐? 너희 모두는 다음의 말들도 잘 알고 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슬기가 노하기를 더디게 한다.' '자기 자신의 자아를 통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벽이 없는 무방비한 성과 같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 함이 많다.' '정신에서 서두르지 말라. 분노는 바보들의 품에 머문다.'" 예수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좀 더 계속하였다: "너의 영 안내자가, 신성한 아들관계의 직위와는 모순되는 그러한 동물적인 노함이 격발로 분출시키는 경향으로부터, 너희를 벗어나게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너희의 가슴이 사랑으로 지배되어 있게 하라.”

149:4.3 (1673.3) 바로 이 기회에, 주(主)는 무리들에게 균형 잡힌 성격을 소유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예수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직업을 통달하는 것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지나치게 전문화되는 모든 경향들, 편협한 마음을 지니게 되고 일생의 활동으로 한정짓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였다. 어떤 미덕이든지 그것이 극도로 행해진다면 악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주었다. 예수는 항상 절제를 설교하였고, 일관성—일생 문제에서의 균형 잡힌 조절—을 가르쳤다. 지나친 동정심과 연민은 심각한 감정적인 불안정으로 퇴행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 열광은 광신으로 몰아갈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그들의 옛 연관-동료들 중 하나가, 스스로의 상상력이 그 자신을 환상적이고 비실천적인 과업으로 이끌었었던 일에 관하여 논하였다. 동시에 그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단조로움에서의 둔감함이 지닌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하였다.

149:4.4 (1673.4) 그리고 나서 예수는 용기와 신앙이 때로는 어떻게 사고력이 없는 혼들을 무모함과 억측으로 이끌어 가는지에 관한 위험성에 대해서 강연하였다. 그는 또한 신중함과 사려 깊은 분별력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그것들이 소심함과 실패로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그는 듣는 이들에게 편향으로 기우는 모든 성향을 피하고, 독창성을 위하여 분투할 것을 교훈 하였다. 그는 감상에 치우치지 않는 동정심과 독실한 신자인 척 하지 않는 신앙심을 가지도록 호소하였다. 그는 두려움과 미신에 속박 받지 않고 드리는 존경을 가르치셨다.

149:4.5 (1674.1) 균형 잡힌 성격에 관한 그의 가르침보다는 예수 자신의 일생 자체가 그의 가르침의 훌륭한 모범이 되었다는 사실로서 그의 연관-동료들을 감동시켰다. 그는 압박감과 폭풍 속에서 살았지만,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적들은 계속해서 함정을 놓았지만, 결코 그를 빠트릴 수는 없었다. 현자들과 박식한 자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으나, 그는 비틀거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논쟁에 휩쓸어 넣으려고 했지만, 그의 대답은 항상 깨우침을 주고, 위엄 있고 최종적인 것이었다. 그가 여러 종류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그의 강연이 중단되었을 때에도, 그의 대답은

항상 의의(意義)깊고 결론적이었다. 그는 그에 대한 공격으로 온갖 종류의 헛되고 부적당하며 불의한 방법을 주저 없이 동원하는 그의 적들의 계속되는 압력과 만나면서도, 절대로 명예롭지 못한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

149:4.6 (1674.2)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어떤 정해진 직업에 자신들을 꾸준히 적용시켜야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존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에서의 폭넓은 문화적 접촉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 전적으로 바람직하다. 진정으로 학식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활동에 대한 무지함 안에서 그냥 지내는 것을 만족하지 않는다.

제 5 장. 충족에 대한 교훈

149:5.1 (1674.3) 예수가 시몬 젤로떼와 함께 일하던 전도자들의 집단을 방문하였던 저녁 회합 시간에, 시몬이 예수께 질문하였다: “어찌하여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지요? 그 가득한 만족은 종교적 체험의 문제인가요?” 여러 가지들 중에서, 예수가 시몬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시몬아, 어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 한다. 많은 것, 아주 많은 것이, 사람이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의 영에게 인도받고 지도받으려고 기꺼이 나서는 데에 달려있다. 너희의 현자(賢者)가 ‘사람의 영은 주님의 촛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한 말을 성서에서 읽지 않았느냐? 또한 저들 영에-인도된 필사자들이 말하였다: ‘줄이 그어져 기쁨이 넘치는 곳 안에 내가 들게 되었다. 그렇다. 값진 유산을 받았구나.’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크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서 그로부터 만족될 것이기 때문이다.’ ‘쾌활한 가슴은 활기찬 표정을 만들고, 계속 이어지는 잔치와 같다. 적게 가진 자가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 큰 보화와 그와 함께 있는 괴로움을 가지는 것보다 낫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 약초로 먹는 저녁이 살찐 소를 증오와 함께 있는 기름진 소를 먹는 것보다 낫다. 정의로움과 함께하는 적은 것이 공정함이 없는 큰 소득보다 낫다.’ ‘쾌활한 가슴은 약처럼 좋은 것이다.’ ‘평온과 함께 있는 한 움큼이, 슬프고 괴로운 영과 함께 있는 초(超)호화로움보다 낫다.’

149:5.3 (1674.5) “대부분의 사람의 슬픔이 야망을 이루지 못한
실망과 자부심에서의 상처에서 탄생되는 것이다. 비록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그들의 삶에서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 그래서 진지하게 전력을
기울여 가야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몫을 활기차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손에 들어온 것에서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는 본래의 창의력을 행사하여야만 한다. 사람의
괴로움의 너무 많은 모든 것이 자신의 본성적 가슴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토양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사악한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사악한 자는 괴로운
바다와 같고, 그것은 쉴 수 없으니, 단지 진창과 더러움이
숫구치는 물일뿐이다. 하느님이 말씀하셨다, 사악한
자에게는 평화가 없다.’

149:5.4 (1674.6) “그러므로 거짓 평화와 과도기적인 기쁨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 안에서 평강, 가득한 만족, 최극의
즐거움을 결실로 낳는 그러한 신앙의 확신과 그리고
신성한 아들관계의 확실성을 구하라.”

149:5.5 (1675.1) 예수는 이 세상을 도무지 “눈물의 골짜기”라고
여기지는 않으셨다, 오히려 이 세상을 파라다이스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영원하고 불멸의 영들이
탄생하는 구체, “혼을 만드는 골짜기”로 여겼다.

제 6 장. “주(主)님을 두려워 함”

149:6.1 (1675.2) 가말라에서 있었던 저녁 회합 시간에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主)여, 성서에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는데, 어찌하여 주(主)는 저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지요?
우리가 이 두 가르침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합니까?”
예수가 빌립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였다:

149:6.2 (1675.3)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시초에는 단지 두려움을 통하여
사람이 존경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고, 그래서
아들의 애정 넘치는 인지(認知)와 이에 대한 보답인
아버지의 깊고 완전한 사랑을 끌어냄으로서, 너희는
영원자를 경배하도록 이끌려 질것이다. 내가, 질투하고
분노하는 왕-하느님을 지겹도록 봉사예배 하는 노예와
같은 두려움으로 너희 자신들을 속박하는 일에서 구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느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부자(父子) 관계라는 것을 일깨워서, 그것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하느님께 숭고하고 숭고한 자유로운 경배 속으로 너희가 기쁘게 인도될 것이다.

149:6.3 (1675.4)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 연속되어진 여러 세대에서 다른 의미들을 가졌는데, 그것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하여 고통과 불안을 거쳐서, 경외와 존경까지 올라와 있다. 이제는 내가 존경에서 시작하여 인지, 실현, 그리고 깊은 감사를 거쳐서 사랑에 올라와 이르도록 너희를 이끌고자 한다. 사람이 하느님의 업적만을 인지할 때, 그는 최극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끌려오게 된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 계신 하느님의 개인성과 성격을 납득하고 체험하기 시작할 때, 그는 점점 더 어떤 선하고 완전하며 우주적이며 영원한 그러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과 하느님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땅에 있는 사람의 아들의 사명을 이루고 있다.

149:6.4 (1675.5) "지능을 가진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애정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나누어 준 풍부한 선물을 이미 가진,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들이는 자녀들은 그러한 한량없는 은혜를 인식함과 감사함으로 응답하면서 그들 아버지를 사랑하도록 이끌린다. 하느님의 선함은 회개로, 하느님의 은혜는 봉사로, 하느님의 자비는 구원으로 인도하며, 한편 하느님의 사랑은 지능적이고 걱정 없는 경배로 인도한다.

149:6.5 (1675.6) "너희의 선조는 하느님의 강하심과 신비로움으로 인해 그를 두려워하였다. 너희는 그를 찬미할 것이니 이는 그가 사랑에서 비할 데 없고, 자비에서 충만하며, 그리고 진리에서 영광스럽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힘은 사람의 가슴속에서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그의 개인성에서의 고귀성과 정의로움은 존경, 사랑, 자발적인 경배를 하게 만든다. 충실하고 애정 어린 자녀는 막강하고 고귀한 아버지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움의 자리에 사랑으로, 슬픔의 자리에 기쁨으로, 공포의 자리에 자신감으로, 노예적인 억압과 무의미한 의식(儀式)의 자리에 사랑하는 봉사와 감사의 경배로 바꾸어 놓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

된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그러나 빛이 좀 더 충만하게 비추었을 때, 하느님의 자녀는 그가 행하신 일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가 그 이신 것 때문에 무한자를 찬양하도록 인도된다.

149:6.6 (1675.7) "아이들이 어리고 생각이 없을 때는, 그들은 그들의 부모를 명예롭게 하라는 훈계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이 나이가 들어 부모의 사명활동과 보호의 혜택을 좀 더 고마워할 줄 알게 될 때는, 그들은 납득에서 나온 존중과 증가하는 애정을 통하여, 부모가 무엇을 행하였는가 보다는 부모가 무엇인가로 인하여, 자신들의 부모를 실재적으로 사랑하는 차원으로 올라간다. 아버지는 본성적으로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하여 경외, 무서움, 의존 그리고 존경을 두루 통하고 사랑에 대해 감사하며 인정하는 그리고 애정까지 이르도록, 아버지에 대한 그의 사랑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149:6.7 (1676.1) "너희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사람의 전체적인 의무이다.'라고 배웠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새롭고 더 높은 계명을 주러 왔다.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배워라. 그것은 하느님의 해방된 자녀의 최고의 특권이니라.'고 가르치겠다. 너희의 선조들은 '하느님, 전능한 왕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쳤지만, 나는 이제 '하느님, 모든-자비로우신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겠다.

149:6.8 (1676.2) "내가 선포하러 온 하늘의 왕국에는 높고 강력한 왕이 없으며, 이 왕국은 하나의 신성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절대적으로 경배를 받는 중심이 되시며, 광대하게 퍼져있는 지능존재들의 형제집단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며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시다. 내가 그분의 아들이며 너희도 또한 그렇다. 따라서 너희와 내가 하늘 영토에서 형제라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육신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 그렇다면 왕으로서 하느님을 두려워하거나 주인으로서 그분을 섬기는 것을 그만 두어라. 창조자로 존경하는 것을 배우라; 너희 영 어린아이의 아버지로서 명예롭게 하라; 자비 넘치는 옹호자로 사랑하라; 그리고 궁극에는, 너희의 더욱 성숙된

영적 실현과 진정한 인식에서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전적으로-지혜로우신 아버지로 경배하라,

149:6.9 (1676.3)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그릇된
개념으로부터 겸손에 대한 거짓된 관념이 자라나고 많은
너희의 위선이 생겨났다. 사람이 본성과 기원에서 흠에서
난 벌레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 내 아버지의 영이
깃들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운명이 신성하게 된다. 내
아버지로부터 증여된 영은 신성한 근원과 기원이 되는
우주 차원으로 확실하게 되돌아갈 것이며, 그리고
내주하는 이 영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아이가 될 필사
사람의 인간 혼도, 분명히 그 신성한 영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의 바로 그 현존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149:6.10 (1676.4) “하늘왕국으로 가는 영원한 상승의 그러한 모든
신앙의 후보자들에게 신성한 위엄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이들 모든 선물을
받아들인 필사 사람에게 겸손은, 진정으로, 적합한 것이다.
외양으로 꾸미는 그리고 거짓된 겸손의 무의미하고
천박한 실천은, 너희의 구원의 근원에 감사하고 인정하며
영으로 태어난 혼의 운명을 인지하는 것과는 상반된다.

하느님 앞에서의 겸양은 너희의 가슴속 깊은데서 하는 것이 알맞은 일이다; 사람 앞에서의 온유함은 칭찬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자아-의식적이고 그리고 관심을-갈망하는 겸양의 위선은 유치하며, 왕국의 깨우친 자녀에게는 가치가 없다.

149:6.11 (1676.5) “너희가 하느님 앞에서 온순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아-통제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너희의 온순함이 영적 기원에 있게 하라, 그래서 자아-정의로운 우월성의 그러한 어떤 자아-의식적인 것에서의 자아-기만적 전시(展示)가 되지 않도록 하라. 선지자가 충고하여 말하기를, ‘하느님과 함께 겸손하게 걸으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무한자이며 영원자이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뉘우치는 마음과 겸손한 영을 지니는 그러한 자와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아버지는 자부심을 경멸하며, 위선을 몹시 싫어하며, 사악한 불의를 혐오한다. 그리고 내가 필사 사람이 하늘의 왕국의 영 실체로 들어가는 데 매우 필수적인 마음의 태도와 영적 반응을 설명하면서, 어린아이를 자주 예로서 거론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지원과

신실한 인도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성실함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었다.

149:6.12 (1677.1) “선지자 예레미야가 많은 필사자들에 대해서술하면서 잘 말하였다: ‘너희가 입으로는 하느님께 가까우나, 가슴 안에서는 멀다.’ 그리고 너희는 또한 무서운 경고를 한 선지자의 말을 읽지 못했느냐?: ‘그렇게 사제는 고용되어 가르치고, 그렇게 선지자는 돈을 벌려고 신성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경건함을 고백하고, 주님이 저희와 함께 있음을 선포한다.’ 너희는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가슴에는 해악이 있는’ 사람들과, ‘입으로는 아침하나 가슴은 이중-거래에 쏠리는’ 사람들에게 대해 경고 받지 않았는가? 신뢰하는 사람의 모든 슬픔 가운데, ‘신뢰하던 친구의 집에서 상처를 받은 것’만큼 것처럼 끔찍한 것은 없다.”

제 7 장. 벧세다로 돌아감

149:7.1 (1677.2) 시몬 베드로와 상의하고 예수의 승인을 받은 후, 안드레는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끝내고 12월 30일, 목요일에 벧세다로 돌아오라는 전갈을 보내기 위해 설교하는 여러 무리들에게 메신저들을 파견하라고

벧세다의 다윗에게 지시하였다. 비 오는 날인 그날 저녁식사 시간까지 모든 사도 집단과 전도자들 모두가 세베대의 집에 도착하였다.

149:7.2 (1677.3) 그 집단은 벧세다의 집들과 가까이 있는 가버나움의 집들에서 지내면서 안식일 이후까지 함께 지냈다. 그런 후에 전 집단은 가족들과 친구들을 방문하거나 고기를 잡으러 가기 위한 두 주일의 휴가가 주어졌다. 그들이 벧세다에서 함께 있었던 2-3일간은 진정으로 흥미롭고 영감 어린 날들이었다. 선배 선생님들까지도 후배 설교자들의 체험담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149:7.3 (1677.4) 갈릴리의 두 번째 설교 여행에 참가했던 117명의 전도자들 중에서 오직 약 75명만이 실재적인 체험의 시험을 통과하였으며, 두 주일의 휴가가 끝났을 때 봉사에 배정받으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예수는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세베대의 집에 남아있었으며 왕국의 복지와 확장에 관한 회의를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제 150 편 세 번째 설교 여행

150:0.1 (1678.1) 기원후 29년 1월 16일 일요일 저녁에, 아브너가 요한의 사도들과 함께 벳세다에 도착하였고, 다음날에 안드레와 예수의 사도들과 함께 합동 회의에 들어갔다. 아브너와 그의 연관-동료들은 그들의 본부를 헤브론에 두었고 이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벳세다로 올라오는 것이 관행이었다.

150:0.2 (1678.2) 이 합동 회의에서 다루었던 많은 문제들 중 하나는, 병을 고치기 위하여 기도를 드릴 때, 병자에게 일정형식의 기름을 부여오던 실천 관행에 관한 것이었다. 다시 한 번 예수는 그들의 토론에 관여하거나, 그들의 결정사항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발표를 거절하였다. 요한의 사도들은 언제든지 병자나 고통 받는 자들을 위한 일을 할 때 기름 붓는 일을 행해왔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양쪽 집단에 대한 공통된 관행으로 세우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예수의 사도들은 그러한 규정에 자신들을 매어놓기를 거절하였다.

150:0.3 (1678.3) 1월 18일 화요일에, 세 번째 갈릴리 설교(說敎) 여행에 파견되기에 앞서, 벳세다에 있는 세베대의 집에서 검증되었던 전도자 24명이 합류(合流)되어, 숫자가 약

75명이 되었다. 이 세 번째 사명은 7주의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150:0.4 (1678.4) 전도자들을 5명씩 한 집단으로 같이 내보내고, 한편 예수와 12사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여행하였는데, 사도들이 둘씩 나가서 필요할 때마다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또한 아브너와 그의 연관-동료들은 거의 3주일 동안 전도자 집단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신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들은 막달라, 티베리아스, 나사렛과 이미 전에 방문했었던 곳과 또 다른 많은 지역들, 중부와 남부 갈릴리의 주요 도시들과 마을들을 방문하였다. 북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이것이 갈릴리에 보내진 그들의 마지막 전파였다.

제 1 장. 여인 전도 집단

150:1.1 (1678.5) 이 세상에서의 예수의 생애(生涯)와 관련해서 그가 하였던 대담한 모든 일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1월 16일 밤에 있었던 그의 갑작스런 발표였다: “내일 우리가 왕국의 일을 돌보기 위하여 별도로 10명의 여인들을 선발하겠다.”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휴가를 받아 벳세다를

떠나는 두 주(週)간의 휴가가 시작될 무렵에, 예수는 다윗에게 그의 부모를 집으로 오게 할 것과 그 전의 야영지와 천막 병원(病院)의 관리-행정에 동참했던 10명의 신앙심이 강한 여인을 벳세다로 불러들이도록 메신저들을 보내라고 시켰다. 이 여인들 모두는 그 젊은 전도자들에게 주어졌던 가르침을 받았었지만, 그러나 예수가 여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가르치며 병자(病者)를 돌보는 일을 맡기리라고는 그들 자신들이나 선생들은 결코 생각에 떠올리지 못했었다. 예수가 임명한 이 10명의 여인들은, 전에 나사렛 회당의 카잔(선생)이었던 사람의 딸 수잔나, 헤롯의 청지기 추자의 아내 요안나, 티베리아스와 세포리 부자(富者) 유대인의 딸 엘리자벳, 안드레와 베드로의 큰누나 마르다, 주(主)의 육신의 형제인 유다의 처제 라헬, 시리아 의사인 엘만의 딸 나산타, 사도 도마의 사촌 밀가, 세리(稅吏) 마태의 맏딸 롯, 로마 백부장의 딸 켈타, 다마스쿠스의 과부 아가만이었다. 나중에 예수는 다른 두 여인들—막달라 마리아와 아리마대 요셉의 딸인 레베카—를 이 집단에 추가하였다.

150:1.2 (1679.1) 예수는 이 여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조직을 스스로 세우도록 위임하였으며, 유다에게 그들의 장비와 짐

부리는 가축을 준비할 기금을 제공하도록 지도하였다. 그 10명은 수잔나를 그들의 의장으로, 요안나를 회계로 선출하였다. 이때로부터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기금을 스스로 충당하였으며, 다시는 한 번도 유다로부터 기금을 조달 받지 않았다.

150:1.3 (1679.2) 여인들이 회당에 있는 본당(本堂)에 들어오는 것도 허락이 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여인용 회랑에 한정되어 있었다), 새로운 왕국 복음을 가르치는 권한을 가진 선생들로 그들을 받아들인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 예수가 그들을 복음의 교사와 일꾼으로 이들 10명의 여인들을 별도로 정하면서 임무를 부여했던 사건은 모든 여성들을 그 언제나 자유롭게 만든 해방 선언이었다. 더 이상 남성이 여성을 자신보다 영적으로 뒤진 열등자로 여길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12사도들에게까지도 굉장한 충격이었다. 여러 차례 주(主)가 “하늘의 왕국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아니고, 자유로운 자도 매인 자도 아니고,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모두가 똑같이 하느님의 아들과 딸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정식으로 이들 열명의 여인들을 종교 선생들로 임명하고 그들과 함께

여행하도록 허락할 것을 제안하였을 때, 그들은 문자 그대로 기절할 지경이었다. 이 일로 인해서 전 나라가 술렁대었고, 예수의 적들은 이 기회를 예수를 비난할 큰 구실로 삼았다. 그러나 사방에서 복음을 믿는 여자 신도들이 그들의 선택된 자매들을 견고하게 뒷받침함으로써, 종교적인 일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한 때늦은 인정에 확실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후세(後世)의 세대에 가서 그들이 다시 옛날의 관례로 되돌아 가버리긴 하였지만, 이렇게 당연한 인식을 가져다 준, 이 여성 해방은 주(主)가 떠나신 후에도 사도들에 의해 즉각적으로 실천되었다.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를 통하여 여성 교사들과 사명활동자들은 여성 집사로 불렸고 일반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바울은 이론적으로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실제로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 없었으며, 그것의 실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제 2 장. 막달라에 들림

150:2.1 (1679.3) 벳세다로부터 사도 일행이 여행할 때에 그 여인들은 뒤에서 따라왔다. 회의가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항상 연설자의 오른 쪽 앞자리에 앉았다. 점점 더, 여자들이

왕국복음에 대한 신자들이 되어갔었고, 그들이 예수나 혹은 사도 중의 한 사람과 개인적 상담을 갖기를 원하게 되면, 그것은 많은 어려움의 근원이었으며 난처함은 끝이 없었다. 이제는 이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 여인들 중 누구든지 주(主)를 만나고 싶거나 사도들과 상의를 하고 싶을 때에는, 그들은 수잔나에게로 갔으며, 그리고 12명의 여자 전도자들 중의 한 사람과 동행하여, 즉시 주(主)의 현존 앞으로 또는 그의 사도들 중 한 사람 앞으로 가곤 하였다.

150:2.2 (1680.1) 여자들의 효용성이 처음으로 실증되고, 그들을 선택한 것이 지혜로웠음을 입증한 것은 막달라에서였다. 안드레는 자신의 사도들이 여인들, 특별히 의심스러운 성격을 가진 여인들과 개인적 일을 하는데 있어서 연관-동료들에게 상당히 엄한 규율을 제정했었다. 그 일행이 막달라에 갔을 때, 이들 10명의 여자들은 자유롭게 악의 환락가에 들어가서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기쁜 소식을 설교할 수 있었다. 병자를 방문했을 때, 이 여전도자들은 그들의 고통 받는 자매들을 매우 가깝게 그들의 사명활동 안으로 이끌 수 있었다. 이들 10명의 여전도사들(나중에는 12명의 여전도자들로 알려짐)의

이곳에서의 사명활동의 결과로, 막달라 마리아가 왕국에 대하여 설득되었다. 연속된 불행과 그리고 그러한 때의 어떤 판단의 실수를 범한 여자를 대하는 평판을 중시하는 사회적 태도 때문에, 이 여자는 막달라의 사악한 환락가속에 굴러 떨어졌다. 마르다와 라헬이 마리아에게, 그녀 같은 사람에게도 왕국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해주었다. 마리아는 그 기쁜 소식을 믿었고 그 다음날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150:2.3 (1680.2) 막달라 마리아는 12명의 여자 전도자들의 이 집단 중에서 가장 효력적인 복음 교사가 되었다. 그녀는 개심한 이후 약 4주 뒤에, 레베카와 함께 그러한 봉사를 위하여, 요타파타에 따로 떨어졌다. 마리아와 레베카는 이 집단의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의 땅에서 보낸 일생의 나머지 기간 동안 그들의 천대받는 자매들을 깨우치고 들어올리기 위하여 신실하고도 효과적으로 수고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예수의 일생의 드라마에서 마지막이자 비극적인 에피소드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하나를 제외하곤 모두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 모두는 자리에 있었고,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았다.

제 3 장. 티베리아스에서의 안식일

150:3.1 (1680.3) 예수로부터의 지시에 따라서, 안드레는 사도 일행의 안식일 봉사예배를 여자 사도들에 의해 진행되도록 하였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새 회당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하였다. 여자들은 이 특별행사의 책임자로 요안나를 뽑았으며, 헤롯이 펠라에 있는 줄리아스의 관저에 머물려고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헤롯의 새 궁전 연회실에서 가졌다. 요안나는 미리암, 드보라, 에스더와 다른 여자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종교 생활에서 여인의 일에 관계된 부분을 성서로부터 낭송하였다.

150:3.2 (1680.4) 그 날 밤늦게 예수는 연합된 그 집단에게 “마술과 미신”에 대한 기억에 남는 말을 해주었다. 그 당시에는 밝고 새로운 별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나타나는 일이란 이 세상에서의 위대한 사람의 탄생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한 별을 최근에 보게 된 안드레가 예수께 이러한 믿음은 근거가 있는지에 관해 물었다. 안드레의 질문에 긴 대답을 하면서, 주(主)는 인간의 미신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를 놓고 깊은 토론에 들어가셨다. 이때에

예수가 말씀한 것들을 다음과 같이 현대 용어로 요약해 볼 수 있다:

150:3.3 (1680.5) 1. 하늘에 있는 별들의 경로들은 이 세상의 인간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천문학은 과학의 타당한 추구이지만, 그러나 점성학은 왕국 복음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미신적인 실수 덩어리이다.

150:3.4 (1680.6) 2. 최근에 죽인 동물의 내장(內臟)을 조사함으로써 기후, 미래의 사건, 또는 인간 관련사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 것도 드러낼 수 없다.

150:3.5 (1680.7) 3. 죽은 자들의 영은 그들의 살아있는 가족 또는 살아있던 한 때의 친구와 교통하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150:3.6 (1681.1) 4. 부적이나 유품은 병을 고치거나 재앙을 막거나 악령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영적 세상에 영향을 준다는 그러한 물질적인 모든 수단들에 의지하는 것은 단지 조잡스런 미신일 뿐이다.

150:3.7 (1681.2) 5. 제비뽑기에 맡겨 버리는 일은 많은 사소한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편리한 방법이긴 하지만, 신성한

뜻을 나타내주도록 고안된 방법은 아니다. 그러한 결과는 순수하게 물질적 우연의 문제이다. 영적 세상과 교제할 수 있는 단 한가지의 수단은, 아들이 쏟아 부은 영과 전재(全在)하는 무한한 영의 영향과 함께 있는, 인류의 영적 자질, 내주 하는 아버지의 영안에 담겨있다.

150:3.8 (1681.3) 6. 점, 마법, 요술은 무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미신이며, 또한 마법의 현혹도 마찬가지이다. 마법의 숫자, 좋은 행운의 전조, 불운의 징조를 믿는 것은 단순하고 근거 없는 미신이다.

150:3.9 (1681.4) 7. 꿈의 해몽은 대체로 무지하고 공상적인 추론인, 미신적이고 근거가 없는 체계이다. 왕국 복음은 원시 종교의 예언 사제들과 그 어떤 공통점도 있을 수 없다.

150:3.10 (1681.5) 8. 선한 영들이거나 악한 영들은 진흙, 나무, 금속으로 만든 물질적 상징 안에 거할 수 없다. 우상은 그것이 만들어진 물질일 뿐, 그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다.

150:3.11 (1681.6) 9. 마법쟁이들, 요술쟁이들, 마술사들 그리고 마법사들의 실천 관행들은 이집트인, 아시리아인, 바빌론 사람, 그리고 고대(古代) 가나안-사람의 미신으로부터

연유되었다. 부적이나 온갖 종류의 주문은 선한 영의 보호를 얻게 하지 못하고 악한 영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막아주지도 않는다.

150:3.12 (1681.7) 10. 그는 주문, 시련, 마법, 저주, 표적, 맨드레이크, 매듭진 줄, 그리고 모든 다른 형태의 무지하고 노예적인 미신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고 비난하였다.

제 4 장. 사도들을 둘씩 내보내다

150:4.1 (1681.8) 다음날 저녁에 12사도들, 요한의 사도들, 그리고 새로 임명된 여자 집단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예수가 말하였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은 것을 너희도 보고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추수를 주관하는 주님께 그가 추수할 일꾼을 발으로 훨씬 더 많이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자. 내가 남아서 새로 된 교사들을 위로하고 가르치는 동안, 먼저 된 교사들을 둘씩 내보내어, 아직은 형편이 좋고 평화로울 때에 그들이 왕국 복음을 전도하면서 재빨리 갈릴리 전역을 통과하도록 하려한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세상으로 내 보낼 한 쌍씩의 사도들을 정해주었는데, 그들은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 세베대와

요한, 빌립과 나다니엘, 도마와 마태, 야고보와 유다 알패오, 시몬 젤로떼와 가롯 유다로 짝을 이루어 나갔다.

150:4.2 (1681.9) 예수가 나사렛에서 12명의 사도들을 다시 만날 기일을 정해주시고,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번의 임무에서는 이방인의 어떤 도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며, 대신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에게로 가거라. 왕국 복음을 설교할 것이며,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구원하는 진리를 선포해라.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않으며, 하인이 그의 상전보다 높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제자가 그의 선생과 같고, 하인이 그의 주인처럼 되면 족하다. 어떤 사람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의 연관-동료라고 감히 말하였다면, 그 집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들이 얼마나 더 심한 말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 적들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겠는데,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사적으로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지혜롭게 공공연히 설교해라. 내가 방 안에서 드러내 보인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이 약속의 계절에 선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친구들인 동시에 제자들인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몸은 죽일 수 있으되 혼은

파괴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 마라. 오히려 몸을 격려하고
그리고 혼을 구할 수 있는 그분에게 너희의 신뢰를 바쳐라.

150:4.3 (1682.1) “참새 두 마리가 한 페니에 팔리지 않더냐? 그러나
하느님은 그 중 하나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단언한다. 그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다. 나의 가르침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가서 평화와 선한 뜻을 선포해라.
그러나 현혹되지 마라—평화가 언제나 너희의 설교에
함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지만, 사람이 나의 선물을 거부할 때에는 분리와 혼란을
가져온다. 가족 전부가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진정으로
평화가 그 집에 깃들인다. 그러나 가족의 일부만 왕국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할 때, 그러한
분리가 단지 슬픔과 비극만을 초래할 수 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족들 간에 서로 배척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너희가 온
가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후에는, 내가 선언하는데,
복음보다 자신의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왕국에
어울리지 않는다.”

150:4.4 (1682.2) 12사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주(主)가 예정한 일정(日程)대로 예수와 다른 제자들을 나사렛의 회합에서 만날 때까지는 다시 함께 모이지 않았다.

제 5 장.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150:5.1 (1682.3) 슈넬에서 어느 저녁시간에, 요한의 사도들은 헤브론으로 돌아가고 예수의 사도들은 둘씩 짝을 지어 나간 후, 주(主)가 12명의 여자와 더불어 야곱의 지도 아래에 있던 12명의 젊은 전도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 라헬이 예수께 이러한 질문을 물었다: “주(主)여, 다른 여인들이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예수가 이 질문을 듣고 대답하였다:

150:5.2 (1682.4) “남자와 여자들이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너희는 대답하라, 신성한 용서를 받아들이라; 왕국의 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라. 내주하는 하느님의 영을 신앙으로 인지하고, 그의 받아들임이 너희를 하느님의 자녀로 만든다. 성서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올바름과 강한 힘을 갖는다.’라는 말을 읽지

않았느냐? 또한 아버지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올바름은 가까이 있다; 나의 구원이 보내어 나가 있으니, 나의 팔이 나의 백성을 감쌀 것이다.' '나의 혼이 나의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올바름의 예복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또한 아버지의 이름이 '주님, 우리의 올바름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것을 읽지 않았느냐? '자아-정의로움의 더러운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신성한 올바름과 영원한 구원의 예복으로 나의 아들을 입히라.' '의인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진실이다.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무료이나, 그러나 그 안에서 존속하는 데는 진보—은총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필수이다.

150:5.3 (1682.5) "구원은 아버지의 선물이며,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계시된다. 너희 편에서 신앙으로 받아들임은 너희를 신성한 본성, 하느님의 아들과 딸의 한편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 신앙으로 너희는 의로워지며,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바로 이 신앙으로 너희는 진보적이고 신성한 완전성의 길에서 영원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멜기세덱의 가르침을 받아 구원을 인식하게 되었다. 모든 세대들을 통하여 바로 이 신앙이 사람의 아들들을 구원하였으나, 그러나 지금은 아들이 이 구원을 좀 더 실제적이고 받아들이기 쉽게 하려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150:5.4 (1683.1) 예수가 말씀을 마치셨을 때, 거기에는 이 은혜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자들 사이에는 커다란 기쁨이 향유되었으며, 그들 모두가 이어진 여러 날 동안 새 힘과 다시 새로워진 에너지와 열광으로 왕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계속 나아갔다. 그리고 여자들은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는 계획에서 자신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누구보다도 더 기쁨을 향유하였다.

150:5.5 (1683.2) 자신의 말을 마치시면서,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올바른 벌어들일 수 없다. 구원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올바른 왕국에서 아들관계의 영으로-태어난 생명이 맺는 자연스러운 열매이다. 너희가 올바른 일생을 살았기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이미 구원되었고, 아들관계를 하느님 선물로 인식했고, 그리고

왕국의 봉사를 이 세상 일생에서의 최극 기쁨으로 하고 있기에 너희가 올바른 일생을 사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선함의 계시인 이 복음을 믿을 때, 그들은 자발적으로 죄라고 알려진 모든 것을 회개하도록 인도될 것이다. 아들관계의 실현은 죄에 대한 욕망과 양립할 수 없다. 왕국을 믿는 자들은 올바름을 열망하고 신성한 완전을 갈망한다.”

제 6 장. 저녁 수업

150:6.1 (1683.3) 저녁 토론에서 예수는 많은 주제(主題)에 대해 말하였다. 이 여행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그들 모두가 나사렛에서 재(再)연합되기 전—, 그가 “하느님의 사랑,” “꿈과 이상,” “적개심,” “겸손함과 온순함,” “용기와 충성심,” “음악과 경배,” “봉사와 순종,” “자만과 오만,” “회개와 용서의 관계,” “평화와 완전,” “악한 대화와 질투,” “악, 죄, 유혹,” “의심과 불신,” “지혜와 경배”에 관해 말하였다. 먼저 된 선배 사도들을 떠나보내고, 보다 젊은이들 남자들과 여자들의 집단은 좀 더 자유롭게 주(主)와 함께 이러한 토론에 몰입하였다.

150:6.2 (1683.4) 12명의 전도자들로 이루어진 한 무리와 2-3일을 지내신 후에, 예수는 다른 무리와 함께 지내려고 자리를 옮기곤 하였으며, 다윗의 메신저들을 통하여 모든 사명활동자들의 근황과 행적들에 대한 소식을 항상 듣고 계셨다. 여전도자들은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여행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와 함께 남아 있었다. 각 집단은 메신저 봉사를 통하여 그 여행의 진행 상황을 들어 알고 있었고, 다른 집단들로부터 오는 소식은 언제나 멀리 퍼져서 따로 떨어져 있던 전체 사명활동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근원이 되었다.

150:6.3 (1683.5) 그들이 나누어지기 이전에, 12사도들은 그 전도자들 그리고 여자들의 집단과 함께, 3월 4일 금요일에 주(主)와 만나기 위하여 나사렛에 모여야만 된다는 것이 계획되었었다. 따라서 이때가 되자, 중부와 남부 갈릴리의 전 지역으로부터, 사도들과 전도자들의 이 다양한 집단들이 나사렛을 향하여 출발하기 시작하였다. 오후 중반 경에, 안드레 와 베드로는, 가장 나중에 도착하는데, 미리 도착한 사람들에 의해 준비된 그리고 그 도시의 북쪽 고원 지역에 자리를 잡은 그 야영지에 당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대중 사명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예수가 나사렛을 방문한 첫 번째였다.

제 7 장. 나사렛에서의 체류

150:7.1 (1683.6) 금요일 오후에 예수는 전혀 눈에 띄지 않은 채
그리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나사렛을 거니셨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집과 목공소를 지나갔으며, 소년
시절에 그렇게 많이 즐겼던 언덕에서 반시간 정도
보내셨다.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래로,
사람의 아들이 그의 혼속에서 이때처럼 인간 감정의
홍수로 격동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동안, 그는 나사렛에서 자라던 소년 시절에
그렇게 여러 번 들어왔던, 해 질 무렵을 알리는 귀에 익은
나팔소리를 들었다. 야영지로 돌아오기 전에, 그는 그가
다녔던 학교인 그 회당으로 걸어 내려갔고 그의 마음은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많은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날 일찍 예수는 회당의 통치자에게 도마를 보내어 안식일
아침 봉사예배에 자기가 설교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다.

150:7.2 (1684.1) 나사렛 사람들은 경건함과 올바른 삶에 대하여
좋은 평판을 받은 적이 결코 없었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이 동네는 가까이에 있는 세포리의 낮은 도덕 기준에 의해 점점 더 오염되었다. 예수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동안 내내, 나사렛에서는 그에 관하여 의견이 갈려 있었었다. 그가 가버나움으로 이사 갔을 때 많은 분개심이 있었다. 나사렛의 주민들이 이전에 자기들과 함께 하였던 목수의 많은 업적을 들었을 때, 그들은 초기 설교 여행에서 그가 자신이 태어난 마을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 매우 기분이 상해 있었다. 그들은 참으로 예수의 명성을 들었으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가 자신의 어린 시절의 도시에서는 아무런 위대한 업적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몇 달 동안 많이 토론했었으나, 그에 대한 그들의 의견은 대체로 호의적이지 못하였다.

150:7.3 (1684.2) 따라서 주(主)는 자신이 귀향을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적대감을 가진, 혹평하는 분위기에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의 적들은 그가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지낼 것이며, 그가 회당에서 설교하리라는 것을 알고, 그를 괴롭히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만들려고 수많은 난폭하고 무례한 사람들을 고용하였다.

150:7.4 (1684.3) 그를 지극히 사랑하였던 그의 어린 시절의 카잔 스승을 포함한 대부분의 예수의 옛 친구들은 세상을 떠났거나 나사렛을 떠나갔고, 젊은 세대들은 강한 질투심을 가지고 그의 명성에 분개하기 쉬웠다. 그들은 예수가 자신의 아버지 가족에게 바쳤던 초기의 헌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사렛에 살고 있는 형제들과 결혼한 여동생들을 방문하지 않은 그의 무관심을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그를 향한 예수의 가족의 태도 역시 시민들의 이 불친절한 감정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였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수가 안식일 아침에 회당으로 가는 길에서 너무 빨리 걷는다고 까지 비난하였다.

제 8 장. 안식일 봉사에배

150:8.1 (1684.4) 이 안식일은 날씨가 좋았으며, 친구들과 적들로 구성된 모든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 도시의 이전(以前)시민이었던 그의 강연을 들으러 회당으로 모여들었다. 많은 사도 수행원들이 회당에 함께 가지 않고 남아 있어야만 했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자리가 없었다. 젊은 시절에 예수가 이 경배의 장소에서 종종 설교했었던 대로, 이 날 아침에도 회당의 통치자가 성서 본문을 읽을 신성한 문서들의 두루마리를

그에게 넘겨주었을 때, 거기에 참석했던 누구도 그 두루마리가, 그가 이 회당에 기증했던 바로 그 사본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150:8.2 (1684.5) 이 날 있었던 그 예배봉사는 예수가 소년 시절에 참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수행되었다. 그는 회당의 통치자와 함께 연단에 올라갔고, 그 예배봉사는 두 개의 기도를 낭송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복되도다, 세상의 왕이신 주님, 당신은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창조하시며, 평화를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나이다; 당신은 자비로써 땅과 거기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며, 선(善) 안에서 매일 매일의 모든 날에 창조의 업적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의 솜씨의 영광으로 그리고 그의 찬미를 위해 그가 만드신 빛을-내리는 그 빛으로 우리의 하느님 주님께서 복되시다. 셀라. 복되시다, 빛을 지으신 주님 우리 하느님이시여.”

150:8.3 (1685.1) 잠시 쉬었다가 그들은 다시 기도하였다: “주님 우리 하느님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였고, 우리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왕이신 그가, 그 안에서 믿었던 우리의 조상들 때문에, 넘치는 많은 연민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겼나이다. 그들에게 일생의 규례를 가르친 하느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밝히사 율법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주의
계명에 밀착하게 만들어 주시며,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도록 우리가슴을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있게 하시고, 끝남이 없는 세상에 있게 하여
주소서. 당신은 구원을 장만하시는 하느님이요, 우리를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로부터 선택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당신의 크신 이름에 가까이 있게 하였사오니—셀라—이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하나 되심을 사랑으로 찬양케
하였음이나이다. 복되시다,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한 주님이시여.”

150:8.4 (1685.2) 이 때 회중은 유대인의 신경(信經)인 쉬마를
암송하였다. 율법의 여러 부분을 반복하여 암송하는 이
의식은 경배자들 자신이 하늘의 왕국의 멍에를
씹어졌음을, 마찬가지로 낮과 밤에 적용되는 계명의
멍에도 또한 씹어졌음을 나타냈다.

150:8.5 (1685.3)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기도가 있었다: “진실로
당신은 야훼, 우리의 하느님이시며 우리 조상의

하느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조상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조상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 구원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도움,
우리의 구원자니이다. 당신의 이름은 영속으로부터
계시고, 당신 이외에는 다른 하느님이 없나이다. 구원받은
그들이 바닷가에서 새 노래를 당신의 이름에 바쳤으니,
그들이 다 함께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기를, 야훼가
세상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하였도다. 복되도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여.”

150:8,6 (1685,4) 그리고 나서 회당 통치자는 언약궐, 거룩한 글이
들어 있는 상자 앞에 있는 자기 자리에 앉아 19개의 찬양
기도문인 축도문을 낭송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날은
귀빈이 그의 강연 시간을 더 가지도록 하기 위해
봉사예배를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그래서 축도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낭송되었다. 처음 것은
이러하였다: “주님 우리 하느님은 복되시다, 그는 우리
조상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크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느님, 자비와 인애를
베푸시며, 만물을 창조하시며, 조상들에게 한 은혜로운
약속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의 자손의

자손들에게 사랑으로 구원자를 보내도다. 오, 왕이시여,
조력자이시여, 구원자시여, 방패시여! 복되시다, 오, 야훼,
아브라함의 방패시여.”

150:8.7 (1685.5) 그 다음은 마지막 축도였다: “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큰 평화를 언제까지나 베푸소서. 당신은
모든 평화의 왕과 주님이 되심이나이다. 당신은 어느 때
어느 시든지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복을 주시기를
즐거하시나이다. 복되시다 야훼여, 당신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평화로 복되게 하시나이다.” 회중은 축도를
낭송할 때 회당 통치자를 바라보지 않는다. 축도 후에 그는
형식을 벗어나 그 날의 경우에 적합한 기도를 드렸고,
그것이 끝나자 온 회중은 모두 같이 아멘을 말하였다.

150:8.8 (1685.6) 그리고 나서 카잔은 언약궤로 가서 두루마리를
꺼내다가 예수께 건네주고 그로 하여금 성서의 본문을
읽게 하였다. 관례에 따르면 일곱 사람이 적어도 율법을 세
구절씩 읽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날은 그 실천 관행을
접어두고 방문객이 자기가 선택하는 구절의 말씀을 읽게
하였다. 두루마리를 받아든 예수는 일어서서 신명기에서
읽기 시작하였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계명은

너로부터 감추어지지 않았고, 또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다.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계명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인가? 하도록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요. 또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계명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인가? 하도록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생명의 말씀은 네가 알고 복종할 수 있도록, 네게 심히 가까운 곳에 있으니, 심지어 너의 현존 안에 그리고 네 가슴에도 있다.”

150:8.9 (1686.1) 그가 율법으로부터 읽기를 끝내고, 이사야의 글을 열어서 읽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영이 내게 계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음이라. 나를 보내 사, 갇혀있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핍박받는 자를 해방시키고, 받아드릴 만 한 주님의 때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150:8.10 (1686.2) 예수가 책을 닫고 그것을 회당 통치자에게 돌려주신 후, 앉아서 사람들에게 강연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다음의 말로 시작하였다: “이 글들이 오늘날 성취되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가 거의 15분 동안 “하느님의 아들과 딸들”에 관해 강연하였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으며, 그의 정중함과 지혜로움에 감탄하였다.

150:8.11 (1686.3) 정식 예배봉사가 끝난 후에 설교자가 남아 있으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는 것이 회당의 규례였다. 따라서 이 안식일 아침에 예수가 질문을 하기 위해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로 걸어 내려가셨다. 이 집단에는 소동을 일으키려는데 마음이 골몰해 있던 많은 난폭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또 한편으로 이 군중의 주위에는 예수께 문제를 일으키려고 고용된 저질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이때 밖에 남아 있던 많은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회당 안으로 밀고 들어갔으며, 문제가 일어날 기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주(主)가 벗어나도록 안내하려고 애썼지만, 주(主)는 그들과 함께 가려고 하지 않았다.

제 9 장. 나사렛의 배척

150:9.1 (1686.4) 예수는, 자신이 회당 안에 그의 적들의 큰 인파로 둘러싸여있고 그리고 자신의 추종자들이 흩어져있음을 알았다. 그들의 무뢰한 질문과 악의를 품은 농담에 그가 다소간 재미있도록 대답하였다: "그렇다. 내가 요셉의 아들이자 바로 그 목수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의사가 자기 자신을 고치지 못한다.'는 속담을 일깨워 주고,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을 나사렛에서도 행해보라고 다그치는 일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성서에서 '선지자가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들을 제외하고는 명예를 받지 않음이 없다.'는 선언을 이렇게 또한 증거하고 있음을 너희에게 환기시키겠다,

150:9.2 (1686.5) 그러나 그들은 그를 난폭하게 떠밀었고 그리고 비난하는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당신은 당신이 나사렛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당신은 우리에게서 떠나갔지만, 당신의 형제는 평범한 일꾼이며, 당신의 여동생들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 이 도시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안다. 그들이 오늘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당신에 관한 큰일들을 듣고 있다, 그러나 당신이 이곳에 돌아오고 나서 당신이 행한 그 어떤 이적도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내가 자라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너희 모두가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기를 큰 기쁨으로 향유할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은총으로 인한 변환은 은혜를 받는 자들의 살아 있는 신앙에 반응하여 일어난다.”

150:9.3 (1686.6) 예수는 그 무리를 온화하게 다루고 난폭한 적들까지도 효과적으로 공격수단을 버리게 하였었을 것이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사도 중의 하나인 시몬 젤로떼가, 젊은 전도자중의 하나인 나호르의 도움을 받아, 이 와중에 군중 속에서 예수의 친구들을 함께 모았었고, 그리고는 도전적인 태도를 내보이면서 주임의 적들에게 죽으려는가하는 경고를 사용하였었던 전략적인 큰 실책 때문이었다. 예수는 항상 사도들에게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다고 가르쳤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자진하여 주(主)라 부르는, 사랑하는 선생이 그런 식으로 무례함과 멸시를 당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다. 그것은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심한 것이었고,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격렬하고 강렬한 분개심을 내 보였는데, 이 모두가 오직, 이 신앙심 없고

무례한 군중 안에 있는 폭도 영을 자극하여 깨우는데 도왔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돈으로 고용된 자들의 지휘아래, 이 무뢰한들은 예수를 붙잡아 회당 밖으로 서둘러 끌고 나와서 가까운 곳에 있는 가파른 언덕의 벼랑으로 갔고, 그곳에서 그들은 그를 벼랑 끝 너머 아래로 그가 죽도록 떠밀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그들이 막 그를 벼랑 끝에서 밀려고 했을 때, 예수가 갑자기 그를 잡고 있는 자에게 몸을 돌려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의 팔을 조용히 풀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가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갈라졌고, 그리고 아무 괴롭힘도 없이 지나가도록 그를 허락하였을 때, 예수의 친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150:9.4 (1687.1) 예수는 제자들의 수행을 받으며, 그들의 야영지로 갔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을 돌이켜 보았다. 그들은 예수의 지도에 따라 다음날 아침 일찍 가버나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날 밤에 준비를 마쳤다. 세 번째 대중 설교 여행의 이 난폭한 종결은 모든 예수의 추종자들이 침착해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들은 주(主) 가르침중의 일부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왕국이 오직 많은 슬픔과 쓰디 쓴 실망을 통해서만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눈을 뜨고 있었다.

150:9.5 (1687.2) 그들은 일요일 아침에 나사렛을 떠났으며, 여러
다른 길을 따라 여행하면서 그들 모두가 마침내 3월 10일
목요일 정오에 벳세다에 집합하였다. 그들은 열광적이고
모든 것을 정복한 승리의 십자군으로서가 아니라,
환상에서 깨어난 진리의 복음 설교자들로서 침착하고
진지한 집단으로 함께 모였다.

제 151 편 바닷가에 머물면서 가르침

151:0.1 (1688.1) 3월 10일이 되기까지, 설교하고 가르치는 모든
집단이 벳세다에 모였다. 목요일 밤과 금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으며, 한편 안식일에는
회당에 참석하여, 다마스쿠스에서 온 한 나이 많은
유대인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광에 대해 강연하는 것을
들었다. 예수는 안식일에 대부분 시간을 혼자 언덕에서
지내셨다. 토요일 밤에 주(主)가 한 시간 이상이나 “역경의
교훈과 실망의 영적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것은 매우 기억에 남을 만한

가르침이었으며, 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가 가르쳤던 이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다.

151:0.2 (1688.2) 예수는 최근에 나사렛에서 받았던 배척으로 인한 슬픔에서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도들은 그의 평상시의 유쾌한 모습에 야릇한 슬픔이 깃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야고보와 요한이 많은 시간을 그의 곁에서 보냈으며, 베드로는 새 전도자들의 안녕과 지도에 관련된 책임들을 맡아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이 시작하기 전인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여전도자들은 가버나움과 그 곳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와 동네들에서 각 가정을 방문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돌보았다.

제 1 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51:1.1 (1688.3) 이 무렵에 예수는 처음으로 그의 주변에 모여드는 군중들을 가르치는 데에서 비유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가 그 전날에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과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 일요일 아침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침 식사를 하러 나왔다. 그래서 예수는 해변으로 가서 그가 항상 쓸 수 있도록 준비된 안드레와

베드로의 옛날 고기잡이배에 혼자 앉아서 왕국 확장을 위한 다음 단계의 행동에 대한 명상을 하였다. 그러나 주(主)가 혼자 오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 곧 가버나움과 근처의 동네에서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으며, 그날 아침 10시가 되자 거의 1,000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배 가까이에 있는 해변에 모여 주목을 받으려고 시끄럽게 떠들어댔다. 베드로가 이 때 일어나서 배로 나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主)여, 제가 그들에게 말할까요?" 그러나 예수가 "아니다, 베드로야,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나서 예수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가르쳤던 그러한 많은 비유들 중에서 첫 번째 것이었다. 이 배에는 높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어서, 예수가 거기에 앉아서 (가르칠 때에는 앉아서 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해변을 따라 모여 있던 군중들에게 말씀하였다. 베드로가 몇 마디를 한 후, 예수가 말씀하였다:

151:1.2 (1688.4) "어느 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고, 그가 씨를 뿌릴 때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졌으므로 발밑에 밟히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씨들은 땅이 거의 없는 돌밭에 떨어졌고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왔지만 해가 나오자마자 물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어떤 씨들은 가시넝쿨에 떨어졌고, 가시가 자라자 그것이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또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니 자라서 무성하게 되어 결실을 맺었고 어떤 것들은 삼십 배, 어떤 것들은 육십 배, 또 어떤 것들은 백 배가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비유를 말하기를 완결하시면서, 군중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말씀하였다.

151:1.3 (1689.1) 사도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자들은, 예수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들었을 때, 매우 당황하였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 그날 밤 세베대의 정원에서 마태가 예수께 물었다: “주(主)여, 군중들에게 가르치셨던 모호한 말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당신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가 대답하였다:

“인내를 가지고 내가 항상 너희를 가르쳤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알도록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식별력 없는 군중이나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꾀하는 그들에게는 이제부터는 왕국의 신비들을 비유로 말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실제로 왕국으로 들어오려는 자는 그 가르침의 의미를 파악하여 구원을 얻게 되겠지만, 반면에 단지 우리를 해치기 위하여 들으러 온 자들은 보기는 하되 진정으로 보지 못하며, 듣기는 하되 진정으로 듣지 못하게 되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영(靈)의 법칙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겠지만;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한 말을 깨닫지 않느냐? 따라서 지금부터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여, 나의 친구들과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구하는 것을 찾게 되고, 반면에 우리의 적들과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하면서 듣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 중 많은 숫자가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다. 정말로 선지자가 그러한 식별력 없는 자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이 백성의 가슴이 둔하게 굳었고, 그 귀가

막히고,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분별하고 그들 가슴으로
납득할까 두려워 그들의 눈을 그들이 감았도다.”

151:1.5 (1689.3) 사도들은 주(主)의 말씀의 의의(意義)를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다. 안드레와 도마가 예수와 좀 더
이야기하는 동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그 정원의 다른
장소로 갔고 거기에서 그들은 열렬한 그리고 오랫동안의
토론에 참여하였다.

제 2 장. 비유의 해석

151:2.1 (1689.4) 베드로와 그를 둘러싼 그룹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화이고 각각의 장면들에는 어떤 숨은 뜻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가서 설명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베드로가 주(主)에게 가서
말하였다: “우리로서는 이 비유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기를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었다고 하니, 당신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였다. “나의 아들아, 나는 너로부터 아무
것도 숨길 생각이 없다. 그런데 그 비유에 대한 너의 해석은
무엇인지 말해 보아라.”

잠시 침묵을 지킨 후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主)여,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 많이 토의를 해 보았는데, 내가 결론을 내린 해석은 이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복음 전도자이고; 씨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씨는 복음의 가르침을 납득하지 못하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딱딱한 땅에 떨어진 씨를 채어 가는 새들은 사탄이나 혹은 악한 자, 알아듣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가슴에 뿌려져 있는 것을 훔쳐 가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돌밭 위에 떨어지고 그리고 것처럼 즉시 싹이 난 것은 그들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메시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진리가 그들의 깊은 납득 안에, 실제적인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이 고난(苦難)이나 박해(迫害) 앞에서는 쉽게 없어지는 허울뿐이고 생각을 하지 않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곤란이 찾아오면 이러한 신도(信徒)들은 비틀거리고; 유혹(誘惑)을 받으면 깊이 빠져듭니다. 가시넝쿨 가운데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기쁘게 들으나, 세상 관심사와 부유함이라는 속임의 힘이 진리의 말씀을 억눌러 막도록 내버려두어 그로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함을 대표합니다.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지고 싹이 돋아나 약 30배, 약 60배, 약 100배의 결실을

맺는 씨는, 그들이 진리를 듣고 —그들의 서로 다른 지적 자질들로 인하여—다양한 정도의 이해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대표하며, 그에 따라서 이들 다양한 정도의 종교적(宗教的) 체험(經驗)을 현시합니다.”

151:2.3 (1690.1) 비유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을 듣고 나신 후, 예수가 다른 사도들에게 그들 또한 다른 제안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 물었다. 이러한 요청을 받고 단지 나다니엘만이 반응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主)여, 저는 시몬 베드로의 비유해석에서 여러 훌륭한 것들을 깨닫습니다만, 그러나 그와 충분하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제 관념은 이렇습니다: 씨는 왕국 복음을 나타내며, 반면에 씨를 뿌리는 자는 왕국의 메신저들을 나타냅니다. 딱딱한 땅에 있는 길거리에 떨어진 씨는 복음에 무관심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슴이 굳어버린 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조금 밖에 듣지 못한 자들을 나타냅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씨를 채어 간 하늘의 새들은 사람의 생활 습관, 악의 유혹, 육신의 욕망을 나타냅니다. 돌에 떨어진 씨는 새로운 가르침을 빨리 받아들였으나 이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나 실체에 부딪치면 마찬가지로 쉽게 포기하는 감정적(感情的)인

혼을 말한다; 그들은 영적(靈的) 지각력(知覺力)이 부족합니다. 가시넝쿨에 떨어진 씨는 복음의 진리로 이끌린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그 가르침대로 따르려고 마음먹지만, 그들은 삶의 자부심, 질투, 시기심, 그리고 인간 실존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 방해받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약 30배, 약 60배, 약 100배의 결실을 맺기까지 자라나는 씨는, 진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영(靈) 빛남의 각가지 자질을 지니고 있는 남녀들이 그 영적 가르침에 응답하는 그 자연적이고 다양한 힘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151:2,4 (1690.2) 나다니엘이 말하기를 마쳤을 때, 사도들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들은 심각한 토의에 들어가서 열렬한 토론을 벌렸는데, 얼마간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해석의 정확성을 옹호한 반면, 거의 같은 수의 사람은 비유에 대한 나다니엘의 해석을 두둔하고자 하였다. 그러는 동안 베드로와 나다니엘은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서로 상대를 확신시키고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려는 열성적이며 확신을 가진 노력을 하였다.

주(主)는 이러한 혼란이 극도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을 내버려두었다. 그리고 나서 손뼉을 쳐서 그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다시 한 번 그의 주위에 모였을 때, 그가 말하였다. "내가 이 비유에 관하여 말하기 전에, 너희 중의 무슨 애기든지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한 순간의 침묵 후에 도마가 말하였다: "네, 주(主)여, 제가 몇 마디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언젠가 저희에게 바로 이 같은 일을 조심하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께서 가르치시기를, 우리가 설교에서 도해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설화(說話)가 아닌 실제 이야기를 인용해야만 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바라는 하나의 핵심적이며 가장 중요한 진리의 도해에 가장 어울리는 이야기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야기의 말 속에 포함된 모든 사소한 세부에 대하여 영적 적용을 해보려고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베드로와 나다니엘이 둘 모두 비유를 해석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릇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들의 힘을 높게 평가하지만, 마찬가지로 저는, 자연스런 비유를 모든 그 모습 안에서 영적 유추(類推)가

수확되도록 만들려는 그러한 모든 시도는, 단지 그러한 비유의 진정한 목적에 혼란과 심각한 잘못된 개념으로 귀착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옳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전적으로 증명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시간 전에는 한 마음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 비유에 관한 상이한 의견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런 의견을 그토록 진지하게 주장함으로써, 당신께서 이 비유를 군중들에게 말하고는 뒤이어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평을 하라고 하였을 때, 제 생각으로는, 당신께서 염두에 두었을 위대한 진리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우리의 힘마저도 방해할 정도까지 두 분리된 무리로 나뉘어 있다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151:2.6 (1691.1) 도마가 한 말에 모두 조용해졌다. 그는 그들에게 이전의 경우에서 예수가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예수가 다시 말을 시작하기 전에, 안드레가 일어서서 말하였다: “저도 도마의 말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고 싶군요.” 예수가 도마에게 말을 하라고 꼬덕이자, 그가 말하였다: “나의 형제여, 나는 이 토의를 더 길게 끌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원한다면,

말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위대한 진리를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왕국 복음을 가르치는 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효과적으로 우리의 신성한 임무를 실행하느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양한 성공의 정도를 거두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결실에서의 차이는 직접적으로, 우리 사명활동의 환경에 본래 있는 조건들과, 우리가 거의 또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조건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51:2.7 (1691.2) 도마가 말을 끝나치자, 그의 동료 설교자들의 대부분이 그에게 동의하였고, 베드로와 나다니엘까지도 그와 이야기하려고 다가가고 있을 때, 예수가 일어나서 말씀하였다: “도마야, 잘하였다. 너는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베드로와 나다니엘 모두, 그들이 내 비유를 뛰어넘어 하나의 우화를 만들어서 약속에 있는 위험을 그렇게 충분히 보여주었다는 것에서 너희 모두는 똑 같이 잘하였다. 너희 자신의 가슴속에서 너희는 가끔 이론적 상상력의 그러한 비약으로 유익하게 이끌릴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 대중 가르침의 한 부분으로 너희가 그러한 결론을 제시하려고 구할 때 너희는 실책을 저지르게 된다.”

151:2.8 (1691.3) 그렇게 해서 이제 긴장감이 와해되었다. 베드로와 나다니엘은 서로에게 그들의 해석에 대해 축하하였고, 알패오의 쌍둥이를 제외하고, 각각의 사도들은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까지 씨 뿌리는 자의 해석을 과감히 밝혔다. 가롯 유다까지도 그럴듯한 해석을 내렸다. 12사도들은 자신들끼리 자주 주(主)의 비유를 우화로 가정하고 그것에서 무엇인가 고집어내려는 노력은 해보았지만, 다시는 절대로 그들이 그러한 유추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도들과 다른 연관-동료들에게 매우 큰 도움을 주었던 수업이었으며, 특별히 이때로부터 예수가 점점 더 그의 대중 가르침과 관계하여 비유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랬다.

제 3 장. 비유에 대해 좀 더 말하다

151:3.1 (1691.4) 사도들은 비유에-마음이 너무나 사로잡혀 다음 날 저녁 모두를 비유에 대해 좀 더 깊은 토의에 몰입하였다. 예수의 다음과 같은 말로 그날 저녁의 회의가 시작되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항상 가르침을 다르게 함으로서 너희 앞에 나온 사람들의 마음과 가슴에게 하는 진리의 발표가 아주 알맞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지성과 성격들의 군중들 앞에서 네가 섰을 때는,

너희가 듣는 사람들의 각 수준에 맞추기 위하여 각각의 다른 말들로 가르칠 수 없지만, 가르침을 전달해 주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는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각각의 집단, 각 개별존재까지도 자신의 지능과 영적 자질에 따라 너의 비유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빛이 비추이게 하되, 지혜와 사려 깊은 분별력을 가지고 하라. 아무도 등불에 불을 붙일 때, 그것을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아래에 두지 않고, 그의 등불을 모든 사람이 쳐다볼 수 있는 등경 위에 둔다. 내가 너희에게 말 하건대 명백하게 현시되지 않을 그 어떤 것도 하늘의 왕국에 감추어져 있지 않고, 또한 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을 그 어떤 비밀도 남아있지 않다.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빛에 드러난다. 군중들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진리를 듣는지 만을 생각하지는 마라; 또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너희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했던 이것을 기억하라: 있는 자는 더욱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151:3.2 (1692.1) 비유에 관한 계속된 토의와 그들의 해석에 대한 좀 더 나아간 가르침은 다음과 같이 현대용어로 요약되고 표현될 수 있다:

151:3.3 (1692.2) 1. 예수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꾸민 이야기나 우화를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하였다. 그는 비유, 특히 자연에 대한 비유의 자유로운 사용을 권하였다. 그는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연과 영적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활용하는 것이 가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자연적인 것을 “영적 실체의 비 실질적이고 덧없는 그림자”로 자주 암시하였다.

151:3.4 (1692.3) 2. 예수는 히브리 성서에서 서너 개의 비유를 들어서 이러한 가르침의 방법이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셨다. 그러나 이때로부터 그가 비유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거의 하나의 새로운 가르침의 방법의 기원이 되었다.

151:3.5 (1692.4) 3. 비유의 가치를 사도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예수는 다음의 점들에 주의를 주었다:

151:3.6 (1692.5) 비유는 광대하게 다른 차원의 마음과 영들에게 동시적인 호소력을 제공한다. 비유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차별에 도전하고, 비판적인 생각을 선동한다; 그것은 반목을 유발시키지 않으면서 동정심을 도모한다.

151:3.7 (1692.6) 비유는 알려진 것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식별하게 해준다. 비유는 영적이며 초물질적인 것을 소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물질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활용한다.

151:3.8 (1692.7) 비유는 편견 없는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다. 비유는 많은 선입관을 피하게 하고, 새로운 진리를 우아하게 마음속에 넣어주고, 개인적 분개심에서 오는 자아-방어를 최소한으로 유발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행한다.

151:3.9 (1692.8) 비유적인 유사성에 포함된 진리를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직한 판단과 공정한 결정을 직접적으로 경멸하는 의식적 지능행동을 필요로 한다. 비유는 듣는 감각을 통하여 생각을 강화시키도록 이끌어준다.

151:3.10 (1692.9) 가르침에서 비유형식의 사용은 선생에게 새롭고 놀라운 진리까지도 제시할 수 있게 해주며, 동시에 그는 주로 모든 논쟁 그리고 전통이나 확립된 권한과의 외면적 마찰을 피하게 해준다.

151:3.11 (1693.1) 비유는 또한 같은 익숙한 광경을 나중에 마주치게 될 때, 그것에서 배웠던 진리에 대한 기억을 자극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51:3.12 (1693.2) 이런 식으로 예수는, 그의 대중 가르침에서 비유 사용이 점점 늘어가는 그의 실천 관행에 내제되어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자신의 추종자들이 익히 알도록 애썼다.

151:3.13 (1693.3) 저녁 수업시간이 끝날 무렵에, 예수가 처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해 언급하였다. 그는 그 비유가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였다: 첫째, 그것은 그 때까지의 그 자신의 사명활동을 다시 돌아보고, 다가올 이 세상에서의 나머지 일생 동안 그의 앞에 놓여 질 것을 예측해 본 것이었다. 둘째, 그것은 또한 사도들과 왕국의 다른 메신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대로 그들의 사명활동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암시였다.

151:3.14 (1693.4) 예수는 또한 그의 모든 업적이 악마들과 악마들의 영주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었다고 말하는 예루살렘 종교 영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최상의 반박으로써 이러한 비유에 의지하였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자연현상을 영적 존재나 초자연적 기세의 직접적인 활동의 산물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에 호소하는 것은 그러한 가르침을 반박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것이 한편으로는 그의 적들에게 그를 괴롭히기 위한 트집이나 비난할 거리를 찾을 기회를 잘 제공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더 좋은 길을 알기를 열망하는 저들에게 그가 생명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는 가르침에 대한 이러한 방법을 결심하였다.

151:3.15 (1693.5) 그 날 밤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전에, 예수가 말씀하였다: "이제 내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을 말해 주겠다. 나는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시험하고 싶다: 하늘의 왕국은 땅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가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에 열중하는 사이에 그 씨가 싹트고 자랐고, 그리고 그가 비록 그것이 어찌 그렇게 된 것인지 몰랐으나, 그 나무는 열매를 맺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이 되었다. 그리고 곡식이 익게 되었으니 그가 낫을 휘둘렀고 그리고는 추수가 완결되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51:3,16 (1693.6) 사도들은 이 말을 마음속에서 여러 차례 생각해 보았지만, 그러나 주(主)는 결코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의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제 4 장. 해변에서 비유를 좀 더 말씀 하다

151:4,1 (1693.7) 다음날 예수가 다시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그가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밭 가운데에 잡초 씨를 뿌리고는 황급히 사라졌다. 그리하여 어린 싹이 돋아나고 나중에 결실할 때에 이르게 되자, 거기에 잡초도 또한 나타났다. 그러자 이 집주인의 하인들이 와서 그에게 말했다; ‘주여, 당신은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이들 잡초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자 그가 자기 하인들에게 대답하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에 하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말하되, ‘우리가 가서 이 잡초들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아니다, 너희가 그것들을 모아들이는 동안, 너희가 밀까지 뽑을 것이 걱정이 되는구나. 차라리 추수 때까지 둘 모두 함께 자라게 놓아두라, 그 때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리니, 잡초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놓으라고 할 것이다.”

151:4.2 (1693.8) 사람들이 몇 가지의 질문을 한 후에, 예수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였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지금은 겨자 씨 하나가 씨들 중에 작지만, 그것이 다 자란 후에는 그것이 모든 목초들 중에서 가장 크게 되고 마치 하나의 나무처럼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서 쉴 수 있게 된다.”

151:4.3 (1694.1) “하늘의 왕국은 또한 마치 여자가 세 그릇의 가루를 가져와 그 안에 감춰진 누룩과 같으니, 그러니 이렇게 하여 가루의 모두가 부풀어지는 것이다.”

151:4.4 (1694.2) “하늘의 왕국은 또한 마치 어떤 사람이 발견한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그는 기뻐하며 그 밭을 사려는 돈을 가져보려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러 나갔다.”

151:4.5 (1694.3) “하늘의 왕국은 또한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자, 그는 그 엄청난 진주를 사 보려고 그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을 나가서 팔았다.”

151:4.6 (1694.4) “다시 말해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져서 온갖 고기를 끌어 모아 올리는 후릿그물과 같다. 이제 그물이 가득 차게 되었으니, 어부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냈고,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고기들을 분류하였는데,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렸다.”

151:4.7 (1694.5) 예수가 다른 많은 비유를 군중들에게 말씀하였다. 사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군중들을 거의 가르치시지 않았다. 공개적인 청중들에게 비유로 말씀한 후에, 그는 밤 시간 동안에 그의 가르침을 사도들과 전도자들에게 좀 더 충만하고도 명료하게 설명해 주었다.

제 5 장. 게라사를 방문하다

151:5.1 (1694.6) 그 주내내 군중들이 계속하여 늘었다. 안식일에 예수가 서둘러 언덕으로 떠났지만, 일요일 아침이 오자, 그 무리들은 다시 돌아왔다. 예수는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

이른 오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였는데, 그가 말을 완결하고 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내가 군중들 때문에 지쳤으니, 저쪽 편으로 건너가서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도록 하자.”

151:5.2 (1694.7) 호수를 건너가는 도중에 그들은 격렬하고 갑작스런 폭풍우를 만났는데, 그것은 특히 일 년 이 계절의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었다. 이 수역(水域)은 해면보다 거의 700피트가 낮고 높은 독으로 둘러져 있었고, 특별히 서쪽이 더 그러하였다. 거기에는 호수로부터 언덕까지로 이어지는 가파른 협곡이 있었고, 낮에는 가열된 공기가 호수위에 둘러싸인 곳 안으로 올라가고 해가 진 후에는 협곡의 찬 공기가 호수로 급속히 내려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강풍이 어떤 때는 빠르게 왔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없어지곤 하였다.

151:5.3 (1694.8) 이 일요일 밤에 예수를 태우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배가 맞이한 것은 바로 그러한 저녁 강풍이었다. 젊은 전도자들 중 일부를 태운 3척의 배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이 폭풍우는 매우 강렬하였는데, 어쨌든 그것은 그 호수의 이 지역에만 한정되었고, 서쪽 해변 가에는 폭풍의

어떤 흔적도 없었다. 그 바람은 너무 세서 물결이 배 위를 덮치기 시작하였다. 높은 바람은 사도들이 채 돛을 감아 말기도 전에, 돛을 찢어 버렸고, 그들은 이제 약 1마일 반이 떨어져 있는 해안가를 향해 힘들게 저어가면서, 오직 노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였다.

151:5.4 (1694.9) 그러는 동안 예수는 작은 지붕 아래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었다. 그들이 벳세다를 떠날 당시 주(主)가 매우 피곤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를 건너편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었다. 예전에 어부들이었던 이들은 건장한 체험 있는 사공들이었으나, 그 폭풍우는 이제까지 겪었던 것 중에서 가장 심하였다. 바람과 물결이 마치 장난감이나 된다는 듯이 그들의 배를 다루어 높이 치솟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방해받지 않고 깊은 잠을 주무시고 있었다. 베드로는 고물 가까이 오른 쪽에서 노를 젓고 있었다.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자, 그는 노를 내려놓고 예수께로 뛰어가서 그를 깨우기 위하여 심하게 흔들었다. 그가 일어나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主)여, 우리가 심한 풍랑 속에 있는 줄을 모르십니까? 주(主)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 죽을 것입니다."

예수가 빛속으로 나왔을 때, 그는 먼저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그리고는 어둠 속을 뚫어 살피면서 노 젓는 사람들을 바라보셨다. 자신의 격한 불안에서, 그의 노로 돌아가지 않고 있던 시몬 베드로를 다시 돌아보신 후, 그가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 모두가 그렇게 두려움에 차 있느냐? 너희 신앙은 어디 있느냐? 잠잠하라, 진정하라.”

예수가 이렇게 책망의 말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막 끝내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그의 불안한 혼을 진정시키면서 잠잠함을 찾으라는 지도를 거의 막 끝내고 있을 그 때가, 휘몰아치던 공기가 균형을 찾아 갔고, 아주 고요하게 가라앉은 때였다. 성난 물결이 거의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한편 짧은 비를 내렸던 검은 구름이 사라졌으며, 하늘 위에는 별들이 빛났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 모든 것은 순전히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었는데, 사도들, 특히 시몬 베드로는 이 에피소드를 하나의 자연의 기적으로 여기기를 그치지 않았다. 모든 자연은 영적 세력이나 초자연적 존재의 통제 아래에 직접적으로 놓여있는 현상이라고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한 자연의 기적을 매우 쉽게 믿었다.

151:5.6 (1695.2) 예수는 분명하게 12사도들에게 그가 그들의 불안한 영들에게 말한 것이고 두려움에 가득 찬 그들의 마음에게 주의를 기울인 것이지, 자연의 요소들에게 복종을 명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주(主)의 추종자들은 항상 그러한 우연한 발생사건들에 자신들의 해석을 붙이기를 고집하였다. 이 날 이후로 그들은 주(主)가 자연 요소들에 대한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베드로는 어떻게 “바람과 물결까지도 그에게 순종한다.”를 반복하여 말하기에 결코 지치지 않았다.

151:5.7 (1695.3) 예수와 그의 연관-동료들이 해변에 도착한 것은 늦은 저녁이었다. 그날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밤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그들 모두가 해변 가로 올라가지 않고 배에서 지냈다. 약 40명이 되는 그들이 전부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가 말씀하였다: “저 쪽 언덕으로 가서 며칠 지내면서 아버지의 왕국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제 6 장. 게라사의 미치광이

151:6.1 (1695.4)

호수의 동쪽 해변 인근의 대부분은 뒤쪽 고원지대와 완만한 경사로 이어졌지만, 이 특정한 지점은 가파른 언덕이었고, 어떤 곳의 해변은 호수 안으로 깎아질러 내려갔다. 인근의 언덕을 가리키면서 예수가 말씀하였다: “이 언덕으로 가서 아침을 먹고, 어디 아늑한 곳에서 쉬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자.”

151:6.2 (1695.5)

이 언덕바지 전체는 바위가 오랫동안 패어져 만들어진 동굴들로 덮여 있었다. 이러한 패인 곳들의 대부분은 옛날의 무덤들이었다. 언덕배기의 반 정도 올라간 곳의 작고 비교적 평평한 지점에 작은 마을 게라사의 공동묘지가 있었다. 예수와 그의 연관-동료들이 이 매장지 가까이를 지나가자, 이 언덕배기 동굴에서 살고 있던 한 미치광이가 그들 앞으로 달려왔다. 이 미친 사람은 이 지역에서 잘 알려져 있었는데, 그는 한 때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석굴에 갇혀있었다. 오래 전에 그는 고랑을 부셔서 이제는 제 뜻대로 무덤들과 버려진 돌무덤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151:6.3 (1696.1)

아모스라는 이름의 이 사람은 주기적인 정신이상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발작 중에 그가 옷을

제대로 입고 그의 동료들 속에서 제법 잘 처신하는 때도 상당히 있었다. 이러한 제 정신이 든 기간에 그가 한번 벳세다로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와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으며, 그 때 왕국 복음을 반신반의하는 신자가 되었었다. 그러나 곧 그의 병이 사나운 위상으로 발작했고, 그는 무덤으로 재빨리 피하여, 그곳에서 그는 신음하면서 크게 울부짖었고, 그리하여 그 자신은 우연히 그를 만나게 되는 사람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하는 처지가 되었다.

151:6.4 (1696.2) 아모스가 예수를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외쳤다: “예수여, 저는 당신을 압니다. 참으로 제가 많은 악마에 사로잡혀 있으니, 저에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실 것을 제가 간청 드립니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자신의 주기적인 정신적 고통이, 그 당시에는, 악령이나 더러운 영들이 그에게로 들어와서 그의 마음과 몸을 지배한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의 문제들은 주로 감정의 문제였다. —그의 뇌는 크게 병들어 있지 않았다.

151:6.5 (1696.3) 예수는 자기 발아래에 짐승처럼 구부리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에게로 몸을 숙여 손으로 잡아 일으키시며 말씀하였다: “아모스야, 너는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았다. 너는 이미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발작에서 벗어날 것을 명령한다.” 아모스가 예수의 이런 말을 듣자 그의 지성에서 그 어떤 변환이 발생했으며 그로서 그는 즉시 그의 제정신인 마음을 되찾고 자신의 감정을 정상적으로 통제하게 되었다. 이 무렵에 상당한 군중들이 가까운 동네에서 모여들었고, 고원지대로부터 온 돼지 치는 자들로 증강된, 이 사람들은 그 미치광이가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과 앉아서, 그는 제정신인 마음에서, 그리고 자유롭게 그들과 대화하는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151:6.6 (1696.4) 돼지 치는 자들이 미치광이를 고친 소식을 퍼뜨리기 위하여 마을로 급히 들어갔을 때, 작고 그리고 돌보는 이가 없는 약 30마리의 돼지 떼를 개들이 습격해서 대부분의 돼지들을 절벽 너머 바다로 내몰았다. 이 우연한 발생사건이, 예수의 현존과 미치광이의 기적적인 고침이라고 여겨지는 것으로 관련된, 예수가 귀신 군대들을 그로부터 쫓아내어 아모스를 고친 후, 그 귀신들을 돼지 떼로 들여보내 이들을 쏜살같이 바다 속으로 빠지게 하여 처치해버렸다는 전설이 만들어지는

기원이 되었다. 그날이 지나기 전에 이 에피소드는 돼지 치는 자들에 의해 널리 공표 되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것을 믿었다. 아모스가 이 이야기를 가장 확실하게 믿었다. 그는 자신의 병든 마음이 진정된 바로 후에, 돼지 떼가 언덕 가장 자리 너머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는 항상 그를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히고 고통을 준 바로 그 악령들을 그 돼지 떼들이 가지고 갔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질환이 영구하게 고쳐지는 것과 크게 상관이 있었다. 예수의 사도들(도마를 제쳐놓고)도 돼지 에피소드가 직접적으로 아모스의 치유와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

^{151:6.7 (1696.5)} 예수는 자기가 원했던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그 날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는 아모스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과 귀신이 미치광이로부터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에 끌려 나온 사람들에게 의해 시달렸다. 그리고 예수와 그의 친구들은 단지 하루 밤의 휴식을 취한 후인 화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 그들로부터 떠나가 달라는 부탁을 하러 온 돼지 기르는 이방인들의 대표자 때문에 잠이 깨었다. 그 대표자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하였다: "갈릴리의 어부들이여, 우리로부터 떠나 주시오 그리고

당신들의 선지자를 함께 모시고 가 주시오. 우리는 그가 거룩한 사람임을 알지만, 우리 고장의 하느님들은 그를 알지 못하며, 우리는 많은 돼지들을 잃게 될 지경에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으니, 우리는 당신이 여기서 떠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들의 말을 듣자, 안드레에게 “우리의 곳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였다.

151:6.8 (1697.1) 그들이 막 떠나려고 했을 때, 아모스가 그들과 함께 가도록 예수께 간청했으나, 주(主)가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가 아모스에게 말씀하였다: “너는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네가 속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하느님이 너를 위하여 해주신 위대한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아모스는 예수가 그의 병든 혼으로부터 귀신군대들을 내쫓았다는 것과 이 악령들이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서 바로 몰살되었다는 것을 광고하며 다녔다. 그리고 그는, 데카폴리스의 모든 도시를 지나갈 때까지, 예수가 그에게 행한 위대한 일들에 대해 선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제 152 편 가버나움 위기에 이르기까지의 사건

152:0.1 (1698.1)

게라사의 미치광이 아모스가 온전해졌다는 이야기가 이미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퍼졌으며,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화요일 오전에 그의 배가 도착하였다. 이 무리들 중에는 주(主)의 생각과 신념에 대한 구실을 찾기 위하여 예루살렘 산헤드린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왔던 새로운 관찰자들도 있었다. 예수가 그를 마중 나와 모여 있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회당 통치자들 중 하나인 야이루스가 군중을 헤치고 나와 그의 발아래에 엎드려서, 그의 손을 붙잡고 자기와 함께 급히 가 줄 것을 간청하며 말하였다: “주(主)여, 내게 하나 밖에 없는 어린 딸이 집에 누워 있는데 죽기 직전입니다. 부디 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가 이 아버지의 청을 듣고 말씀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152:0.2 (1698.2)

예수가 야이루스와 함께 가시자, 그 아버지의 청을 들었던 많은 군중들이 무슨 일이 생길지 보기 위해 그들 뒤를 따랐다. 회당 통치자의 집에 다다르기 조금 전에 사람들이 좁은 길을 몰려가면서, 인파가 예수를 밀치자 갑자기 그가 멈추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하였다.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손을 댄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主)여, 이 군중들이 당신을 밀고, 우리를 밀치면서 몰아붙이는 것을 당신이 보실 수 있는데도, 그런데도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라 말씀하니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예수가 말씀하였다: “생명의 에너지가 나로부터 나간 것을 내가 감지하였기에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물었다.” 예수가 그의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의 눈이 가까이 있던 한 여인에게 멈추었다. 그러자 그녀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여러 해 동안 제가 심한 혈루병으로 고통 받아 왔습니다. 저는 많은 의사들에게 모든 재산을 탕진해가며 수많은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그 누구도 저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의 소문을 들었으며, 그 옷깃이라도 만지면 확실히 나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당신 가까이 나을 수 있을 때까지 군중들을 그렇게 헤쳐고 나왔습니다. 주(主)여, 내가 당신 옷자락을 만졌고 그리고 내가 온전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내 고통이 고쳐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152:0.3 (1698.3) 예수가 이 말을 들으시고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였다: “딸아, 네 신앙이 너를 온전케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가 온전하게 된 것은

그녀가 그에게 손을 대어서가 아니라 그녀의 신앙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것은 예수의 이 세상 생애에서 일어난, 보기에는 기적 같은 많은 치유의 좋은 예인데,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그가 의식적으로 뜻한 것이 아니었다. 이 여인이 그녀의 질병에서 실제로 고쳐진 것은 시간의 흐름이 실증하였다. 그녀의 신앙은 주(主)의 개인 안에 거하는 창조의 힘에 직접 대어보겠다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었다. 그녀가 가진 신앙으로는, 단지 주(主)의 개인 앞으로 다가가는 것만이 필요할 뿐이었다.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었고, 그것은 단순히 그녀의 신앙에서 가지고 있던 미신적인 부분이었다. 예수는 케자리아-빌립보의 베로니카라는, 이 여인을 자기 앞으로 불러서 그녀의 마음속에, 혹은 이 치유를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간직될 수도 있는, 두 가지의 실수를 바로 잡고자 하였다. 예수는, 베로니카가 자신의 고침을 몰래 받으려 시도했다는 것에 그녀가 두려워하거나, 혹은 그의 옷자락을 만진 것과 관련되어 자신이 치유 효력을 얻었다는 그녀의 미신에 잡힌 생각을 지니고 그곳을 떠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치유를

가져 온 것은 그녀의 순수하고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였다.

제 1 장. 아이루스의 집에서

152:1.1 (1699.1) 아이루스는 자기 집으로 가는 여정이 지연되자 당연히 매우 초조해졌으며;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발걸음을 더 빨리 재촉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통치자의 정원에 들어서기도 전에, 하인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하였다: “주(主)께 더 이상 수고를 끼치게 하지 마십시오. 따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하인의 말에 개의치 않으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슬퍼하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말씀하였다: “두려워 말라. 오직 믿으라.” 그가 집으로 들어가시자, 거기에는 이미 피리 부는 자들과 문상객들이 와서, 걸맞지 않는 소란을 피우고 있었으며, 이미 친척들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었다. 그가 모든 문상객들을 방에서 내보내신 후, 소녀의 부모와 세 사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는 문상객들에게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었지만, 그러나 모두들 그를 비웃었다. 이제 예수가 그녀의 어머니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였다: “당신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다; 단지 자고 있을 뿐이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예수는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서서 그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였다: “딸아, 내가 네게 말하니, 깨어서 일어나라!” 그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즉시 일어나 방을 걸어갔다. 그녀가 그녀의 멍한 상태에서 회복된 후, 즉시 예수가 그녀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라고 하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있었다.

152:1.2 (1699.2)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반대하는 많은 선동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 소녀가 오랜 열병 후에 혼수상태에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단지 그녀를 잠에서 깨웠을 뿐, 그가 죽음에서 그녀를 살려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였다. 그는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도 똑같은 설명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들 모두는 예수가 그 작은 소녀를 죽음에서 살려냈다고 믿었다. 예수가 이러한 표면상의 많은 기적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말한 것은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었다. 그들은 기적에-마음 끌려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을 예수께 돌리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들 모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가 특별히 당부하고 나서, 예수와 사도들은 벳세다로 돌아왔다.

152:1.3 (1699.3) 그가 야이루스의 집에서 나왔을 때, 두 명의 소경들이 한 귀머거리 소년의 부축을 받고 그를 따라오며 고쳐달라고 울부짖었다. 이 무렵에는 치유자로서의 예수의 명성이 절정에 달해 있었다. 어디를 가나 병자와 고통 받는 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주(主)가 매우 지쳐 있어서, 그의 친구들 모두는 그가 실재로 쓰러질 때까지 가르침과 병 고치는 일을 계속하지나 않을까 염려되기 시작하였다.

152:1.4 (1699.4)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의 사도들까지도 이 분 하느님-사람의 본성과 속성을 납득할 수 없었다. 또한 후세의 어떤 세대의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나사렛 예수의 개인 속에서 발생했던 일들에 대해 평가해 볼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비상한 상황이 이 세상에서나 혹은 네바돈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세상에서도 두 번 다시 발생할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과학이나 또 종교에 관한 이들 놀라운 사건의 진위를 확인할 기회가 결코 생길 수 없다. 이 전체 우주의 어떤 세상에서도 필사자 육신의 모습을 입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시간과 대부분의 다른 물질적 한계를 초월하는 영적 자질과 병합된 창조

에너지의 모든 속성을 체현하는, 어떤 존재가 다시 또 나타날 수는 없을 것이다.

152:1.5 (1700.1) 이 세상에 예수가 오시기 전은 물론 그 이후도, 필사자 남녀들의 강하고 생생한 신앙에 따르는 결과를 그렇게 직접, 그림으로 보듯 확보하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다. 이들 현상을 되풀이 하려면, 우리가 창조자이신 미가엘의 현존 바로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는 그 때-사람의 아들-의 그가 계신 그대로의 그를 발견해야 할 것이다, 것처럼, 오늘, 그가 자리에 없음이 그런 물질적 현시활동을 방해하고는 있지만, 그의 영적 힘의 가능한 발현에 그 어떤 종류의 한계를 부과하는 것은 삼가야한다. 비록 주(主)가 물질적 존재로는 지금 없지만, 그는 영적 영향으로서 사람들의 가슴속에 현존하고 있다. 예수는 세상으로부터 떠나가면서, 모든 인류의 마음에 깃드는 그의 아버지의 영과 나란히 그의 영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제 2 장. 5,000명을 먹이다

152:2.1 (1700.2) 예수는 낮에는 일반 사람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교육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그는 모든 추종자들이 유월절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며칠 동안 가족이나 친구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금요일에 일주일 동안의 휴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절반 이상의 제자들은 그를 떠나려 하지 않았고, 군중들의 수는 매일같이 늘어났으므로, 그래서 다윗 세베대가 새 야영장을 세우기를 원했으나, 예수는 동의하지 않았다. 주(主)는 안식일에 거의 휴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3월 27일 일요일 아침에 사람들로부터 잠시 떠나가 있기를 원하였다. 예수와 12사도들이 눈에 띄지 않게 건너편 호숫가로 가서 벳세다-줄리아스의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공원에 가서 그들에게 매우 필요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약간의 전도자들이 무리를 가르치려고 그곳에 남았다. 그 지역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로서, 동쪽 해안에 있는 이들 공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지역이었다.

152:2.2 (1700.3) 그러나 사람들은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의 배가 가는 방향을 보았고, 그래서 빌릴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배를 타고 추적에 나섰다. 배를 구하지 못한 자들은 호수 북쪽 끝을 돌아 걸어갔다.

152:2.3 (1700.4) 늦은 오후 무렵에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공원에 계신 주(主)를 찾아냈다. 그래서 예수는 베드로의 말을 이어 그들에게 잠시 말씀하였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음식을 휴대하고 있었으며, 저녁식사 후에 예수의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그들을 가르칠 때 작은 무리를 지어 모여 있었다.

152:2.4 (1700.5) 월요일 오후에 군중은 삼천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여전히—밤늦도록 까지—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고, 그들은 또한 온갖 종류의 병자를 함께 데리고 왔다. 관심을 가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유월절 축제를 위하여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보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목적으로 가버나움에 들릴 계획을 세웠으며, 그들은 간단하게 단념하려고 하지 않았다. 수요일 정오까지는 약 5,000명의 남녀와 아이들이 벳세다-줄리아스의 남쪽에 있는 이 공원에 모였다. 이때는 이 지역에서 우기(雨期)의 끝에 가까웠기 때문에 날씨가 좋았다.

152:2.5 (1700.6) 빌립은 예수와 12사도들을 위한 3일분의 음식을 준비하였고, 그것을 잔심부름꾼 소년인 마가에게 돌보도록 하였다. 3일째 되는 날 오후에는 군중들의 절반

이상은 그들이 가져왔던 음식이 거의 다 떨어졌다. 다윗 세베대에게는 이 큰 무리들을 먹이고 재울만한 천막도시가 없었으며, 빌립 역시 그러한 군중들을 위한 음식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예수가 헤롯과 예루살렘 영도자들과의 마찰을 피하여 적들의 관할 구역을 벗어난 이 조용한 장소를 왕위에 즉위하기에 알맞은 장소로 선택한 것이라고 조용하게 속삭여지고 있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람들의 열광이 점점 높아가고 있었다. 예수는 물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 마디의 말도 언급하지 않았다. 12사도들까지도 여전히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젊은 전도자들은 더욱 더 그러하였다. 예수를 왕으로 선포하려는 이 계획에 동의한 사도들은 베드로, 요한, 시몬 젤로떼, 가롯 유다였다. 그 계획에 반대하는 사도들은 안드레, 야고보, 나다니엘, 도마였다. 마태, 빌립, 알패오 쌍둥이 형제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예수를 왕으로 만들려는 이 구상의 주모자는, 젊은 전도자, 요압이었다.

152:2.6 (1701.1) 예수가 야고보 알패오에게 안드레와 빌립을 불러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그 수요일 오후 5시경의 무대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우리가 이 군중들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들이 우리와 지금까지 3일을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배고파하고 있다. 그들은 가진 음식이 없구나.” 빌립과 안드레가 서로를 쳐다 본 후, 빌립이 말하였다: “주(主)여,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셔서 그들이 먹을 것을 사먹게 하십시오.” 왕 구상이 구현될까 걱정하고 있던 안드레가 재빠르게 빌립의 말에 끼어들어 말하였다: “예. 주(主)여, 그들을 돌려보내어 음식을 사먹도록 하고, 그 동안 주(主)는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렵에는 12사도들의 나머지도 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그러자 예수가 말씀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굶주린 채로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을 먹일 수는 없겠느냐?” 빌립으로서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벅찼고, 그래서 그가 곧 바로 말하였다: “주(主)여, 이런 시골 어디에서 이 군중을 먹일 빵을 사겠습니까? 200 데나리온 어치가 점심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152:2.7 (1701.2) 사도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기도 전에, 예수가 안드레와 빌립에게 말씀하였다: “나는 이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 여기 그들은 목자 잃은 양처럼 있다. 나는 그들을 먹이고 싶다. 우리가 가진 음식이 얼마나 되느냐?” 빌립이 마태, 유다와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 안드레는 소년 마가에게 가서 음식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예수께 돌아와 말하였다: “저 소년이 겨우 빵 다섯 개와 마른 생선 두 개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재빨리 덧붙였다. “우리가 곧 오늘 저녁을 먹어야 합니다.”

152:2.8 (1701.3) 잠시 동안 예수가 침묵으로 서 계셨다. 그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가 갑자기 안드레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 빵과 생선을 나에게 가져오너라.”라고 말하였다. 안드레가 바구니를 예수께 가져오자, 주(主)가 말씀하였다: “사람들을 100명씩 풀밭에 앉히고, 각 무리의 대표를 정하는 한편, 모든 전도자들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152:2.9 (1701.4) 예수가 그의 손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어 자신의 사도들에게 주었고, 그 사도들은 그것을 연관-동료들에게 주었으며, 차례대로 그것을 군중들에게로 가져갔다. 예수는 생선도 그런 식으로 떼어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이 군중들이 먹고 배가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먹기를 마쳤을 때,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다: “남은 조각들을 모두 거두어들여,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이 조각들을 거두어들이기를 마쳤을 때, 그들은 열두 바구니를 가득 채웠다. 그 굉장한 잔치에서 음식을 먹었던 남녀와 아이들은 그 수가 약 5,000명이 되었다.

152:2.10 (1702.1) 이것은 예수가 의도적으로 미리 계획을 한 결과로서 진행된 처음이자 유일한 자연의 기적이었다. 그의 제자들은 기적이 아닌 많은 일들을 기적으로 부르고 싶어 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초자연적인 기적이었다. 이 경우에서 미가엘이 시간의 요소와 눈에 보이는 생명 경로를 제거한 것 이외에는, 그가 항상 하듯이 음식 원소를 증식하였다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다.

제 3 장. 왕-만들기 에피소드

152:3.1 (1702.2) 초자연적인 에너지로 5,000명을 먹인 것은 인간적 동정심에 창조 힘이 더해짐이 바로 그런 일을 일으켰던 그러했던 경우의 또 다른 하나였다. 이제 배가 부르게 먹고 난 군중들에게는, 그 당시의 예수의 명성이 이러한 엄청난

이적으로 증강되어, 주(主)를 붙들고 왕으로 선포하려는 프로젝트에서 더 이상 개인적 지도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 관념은 군중들 안에서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이렇게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충족시켜 준 것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은 심오하고 압도적이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면 그 땅을 젖과 꿀로 다시 넘치게 해 줄 것이며, 생명의 빵이 광야에서 그들의 선조에게 하늘로부터 만나가 떨어진 것 같이 그들 위에 주어질 것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기대가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굶주리고 미숙한 군중이 그 이적-음식으로 배부르도록 가득 먹은 뒤에 그들에게는 만장일치가 되는 단 한가지의 반응이 있을 뿐이었다: “여기에 우리의 왕이 계시다.” 이적을-행하는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드디어 왔다. 이들 단순하게-마음먹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먹일 수 있는 힘이란 다스릴 권한을 지닌 것이었다. 성찬이 끝났을 때, 한 사람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자!”고 외치자, 군중의 모두가 일어 선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강력한 외침은 여전히 예수가 통치할 권한을 주창하기를 바라고 있던 사도들과 베드로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갔다. 그러나 이러한 허망한 기대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였다. 군중들의 이러한 힘찬 외침소리가 근처의 바위로부터 울려 퍼지고 좀처럼 멈추지 않았을 때, 예수가 큰 바위 위에 올라서서 오른 손을 들어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며 말씀하였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의도는 좋았지만, 너희는 좁은 안목과 물질적인-마음을 가지고 있다.” 잠시 동안 사람들에게 침묵이 엄습하였다. 이 건장한 갈릴리 사람은 거기에서 동쪽 황혼의 황홀한 빛을 받으며 장엄하게 서있었다. 숨을 죽이고 듣고 있던 군중들에게 말을 계속하는 그의 모습은 어느 구석으로 보나 왕의 품위를 갖추고 있었다: “너희는 지금 나를 왕으로 추대하려한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의 혼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너희의 배가 빵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나의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고 말했더냐? 우리가 선포하는 이 하늘의 왕국은 영적 형제신분이며, 그리고 그 누구도 물질적인 왕좌에 앉아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만이 이 세상 하느님 아들들의 이

영적 형제신분 위에 계신 모든-지혜를 갖추고 만능이신 통치자이시다. 너희가 육신으로 있는 그의 아들 되는 이를 왕으로 만들려고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영들의 아버지이신 이를 드러내 보여주는 일에서 실패하였더라 말이나! 이제 모두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왕을 가져야 한다면, 빛의 아버지를 만물의 영 통치자로 너희 각자의 가슴속에서 추대하도록 하라.”

152:3.3 (1702.4) 예수의 이러한 말씀은 그 군중을 아연케 하였고 그리고 낙담한 채로 떠나보냈다. 그날 이후로 그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고, 더 이상 그를 따르지 않았다. 사도들은 할 말을 잃은 채, 음식 조각을 걷어 들인 열 두 바구니를 둘러싸고 말없이 서 있었다. 단지 심부름꾼 소년인 마가만이, “그가 우리들의 왕이 되기를 거절했군요.”라고 말하였다. 예수가 홀로 언덕으로 떠나가기 전에 안드레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였다: “너희 형제들을 세베대의 집으로 데려가서, 그들, 특히 네 동생 시몬 베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라.”

제 4 장. 시몬 베드로의 밤 환상

152:4.1 (1703.1) 사도들은, 주(主)를 모시지 않고—그들끼리만 보내졌기에—배로 가서 말없이 호수의 서쪽 해안에 있는 벳세다를 향하여 노를 저어갔다. 사도들중의 그 누구도 시몬 베드로만큼 실망하여 풀이 죽어있지는 않았다. 아무도 말하는 이가 없는 채, 그들 모두는 언덕에서 홀로 지내실 주(主)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버리신 것이었었나? 그 전에는 결코 그렇게 그들 모두를 보내면서, 그들과 같이 가기를 거절한 적이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152:4.2 (1703.2)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세찬 바람과 역풍이 일고 있는 사이에, 어둠이 그들 위에 내려왔다. 어두움과 힘들게 노 젓는 시간들을 지내면서, 베드로가 피곤해져서 깊은 잠에 빠졌다. 안드레와 야고보가 그를 배의 고물에 있는 폭신한 자리로 옮겼다. 다른 사도들이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동안 베드로는 꿈을 꾸었다. 그것은 예수가 물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는 환상이었다. 주(主)가 배 옆으로 걸어오는 것처럼 보이자, 베드로가 외쳤다: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주(主)여,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그리고 배 뒤쪽에 있던 사람들이 그가 외치는 이러한 말들의 몇 마디를 들었다. 이 밤의

환영(幻影)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계속되는 중에, 그는 꿈에서 예수가 하는 말씀을 들었다: “안심하라. 나이니 두려워 말라.” 이것은 베드로의 고통스런 혼에 마치 길르앗의 향료처럼 위안을 주었으며, 그래서 (꿈속에서) 그가 주(主)에게 외쳤다: “주님, 실제로 당신이시면 저도 함께 물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물위로 걷기 시작했을 때, 거센 물결이 그를 겁나게 했으며, 그가 가라앉으려하자, 소리쳤다: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열둘 중의 다수가 그의 이 외침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가 와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꿈을 꾸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네가 의심하였느냐?”

152:4.3 (1703.3) 자신의 꿈의 후반 부분과 연결되어, 베드로는 잠자던 곳에서 일어나서, 실제로 배 밖으로 나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물에서 그를 끌어올렸을 때, 그가 꿈을 깼다.

152:4.4 (1703.4) 베드로에게는 이 체험이 항상 실제의 일로 여겨졌다. 그는 진심으로 예수가 그날 밤 그들에게 왔었다고 믿었다. 그는 단지 요한 마가를 어느 정도

설득시킬 수 있었는데, 이것이 어째서 마가가 그의 기록에서 이 이야기의 한 부분을 남겼는지를 설명해 준다. 의사인 누가는 이 일을 자세히 조사한 후, 이 에피소드는 베드로의 환상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의 기록에 이 이야기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제 5 장. 벳세다로 돌아옴

^{152:5.1 (1703.5)} 목요일 아침 아직 동이 트기 전에 그들은 세베대 집 근처의 해변 가에 배를 세워놓고 정오까지 잠을 잤다. 제일 먼저 일어난 안드레가 해변 가로 산책을 나갔다가, 심부름꾼 소년과 함께 해변 돌 위에 앉아계시는 예수를 발견하였다. 군중들 중 많은 사람들과 젊은 전도자들이 온 밤과 다음날 오랫동안 동쪽 산 인근에서 예수를 찾아다녔었지만 아무튼, 자정이 조금 지난 후 그는 소년 마가를 데리고 호수를 돌아 걷기 시작해서 강을 건너 벳세다로 돌아왔다.

^{152:5.2 (1704.1)} 기적으로 음식을 먹었던, 배는 채워졌지만 가슴은 비어 있었던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추대했었던, 그 5,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단지 오백 명 정도가 계속해서 그를 따랐다. 그러나 예수는 안드레에게 사람들이 그가

벧세다에 돌아왔다는 것을 알기 전에 12사도들과, 여자들을 포함한 연관-동료들을 모두 집합시키라고 시키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씀하였다. 모두가 모이자, 예수가 말씀하였다:

152:5.3 (1704.2) "내가 얼마나 오래 더 너희들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너희 모두 그렇게 영적 이해가 느리고,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이 부족하단 말이냐? 이 여러 달을 내가 왕국의 진리에 대해 가르쳐왔다. 그런데 아직도 너희는 영적 생각들보다는 물질적인 동기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너희가 성서에서 모세가 믿지 않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훈계한 것을 이미 읽지 않았느냐?: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하였다. 시편의 저자도 말했다; '주님을 신뢰하라.'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대담할 찌어다. 그가 너희 가슴을 강하게 하리라.' '너의 짐을 주님께 맡겨 버리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항상 그를 신뢰하고 그의 앞에 너의 가슴을 쏟아 부어라. 하느님은 너희의 피난처이시니' '지고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주님을 믿는 것이 인간 영주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152:5.4 (1704.3)

“이제 너희 모두가 기적의 행함이나 물질적 이적들을 행사함이 영적 왕국으로 들도록 혼을 설득하지 못함을 보았느냐? 우리가 군중을 배불리 먹었으나,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빵이나 영적 올바름의 물을 갈구하도록 인도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배가 부르자, 하늘의 왕국을 찾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 이후로는 애써 일함이 없이도 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계속될 수도 있는 오직 그런 일을 해주는 이 세상의 왕으로, 사람의 아들을 그런 왕으로 선포하려 하였다. 너희도 다소나마 관여했던 이 모든 일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드러내 보이는 것에나 또한 이 세상에서 그의 왕국을 진보시키는 데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시민 통치자까지 틀어지게 만들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이 땅의 종교 영도자들 사이에서 충분한 적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너희의 눈을 정결하게 하셔서 볼 수 있게 하고, 너희의 귀를 열게 하셔서 들을 수 있게 하여, 결국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복음 안에서 충분한 신앙을 너희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152:5.5 (1704.4)

그리고 나서 예수는 유월절을 축하하러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며칠간 사도들도 같이 휴식을

위하여 물러나 있기를 자신이 원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제자들이나 군중들의 누구도 그의 뒤를 따르는 것을 금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2-3일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배편으로 게네사렛 지역으로 갔다. 예수는 이 세상 그의 일생의 커다란 위기를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교제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152:5.6 (1704.5) 5,000명을 먹인 것과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소식이 갈릴리와 유대 지방 전역에 두루 넓은 지역에 호기심을 발동시켰고, 또한 종교 영도자들과 정치 통치자들에게 두려움을 유발시켰다. 이러한 큰 기적은 물질적-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반신반의의 신도들의 혼속에 왕국 복음이 들어가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으나, 그것이 예수의 사도들이나 측근 제자들인 직계 가족의 기적을-찾아다님과 왕을-열망하는 버릇들을 막바지로 이끌어내는 목적에는 도움을 주었다. 이 굉장한 에피소드로 말미암아, 가르침, 훈련, 병고침으로 이루어진 초기 단계가 끝나게 되었고, 좀 더 높고 좀 더 영적인 위상이 되는 새로운 왕국 복음—신성한

아들관계, 영적 해방,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이 마지막
해의 시작을 준비하는 발판이 되었다.

제 6 장. 게네사렛에서

152:6.1 (1705.1) 게네사렛 지역에 있는 어느 부유한 신도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기간에, 예수는 매일 오후에 12사도들과
격식이 없는 회의를 열었다. 왕국의 사절들은 진지했고,
침착했고 환상을 버린 사람들의 단련된 집단이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을 겪은 후에도, 나중의 사건들에서
나타나듯이, 아직도 12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몸에 젖어
오랫동안 간직해 온 그 나타나실 유대 메시아에 대한
개념에서 충분하게 해방되지 못하였다. 이전 몇 주일
동안의 사건들은 깜짝 놀란 이들 어부들이 그 충분한
의의(意義)를 파악하기에는 그 진행 속도가 너무 빨랐다.
남자와 여자에게는 사회적 행위, 철학적 관점, 종교적
신념에 대한 그들의 근원적이고 그리고 기초적인
개념에서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시간이 필요하다.

152:6.2 (1705.2) 예수와 12사도들이 게네사렛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군중들은 해산되어서 어떤 이는 집으로, 다른 이들은

유월절을 지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 한 달이 안 된 기간 동안에 갈릴리 한 군데에서만도 그 수가 50,000명이 넘었던 열성적이며 노골적이었던 예수의 추종자들의 수가 채 오백 명도 안 되게 줄었다. 예수는 사도들이, 환호하는 대중의 번덕스러움을 그렇게 체험함으로써, 그가 그들을 떠난 후 그들 혼자서 왕국의 일을 할 때, 과도기적인 종교적 흥분상태인 그런 현시활동에 의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를 바라셨지만, 그러나 그는 이러한 노력에서 단지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뿐이다.

152:6.3 (1705.3) 게네사렛에서 체류한 둘째 날 밤에 주(主)가 다시 사도들에게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음의 말을 덧붙였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도 보는 바와 같이 인간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철저히 실망이 되며, 이와 비슷하게 순전히 사람의 지성에 호소하는 것도, 속이 비고 열매를 맺지 못 한다; 너희가, 영의 탄생으로 의심의 어두움에서 믿음의 빛—하늘의 왕국—속으로의 그렇게 벗어난 모든 이들의 매일의 삶에서 영의 진정한 열매의 풍성한 수확으로 당장에 보이는 그러한 놀라운 인간 성격의 변환을 이룩하는 것과 영속적인 성공을 달성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음은, 오직

너희의 호소를 인간 마음 안에 함께 사는 영에게 하는 것이다.”

152:6.4 (1705.4) 예수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지적인 주의를 집중시키고 붙잡아두는 기법으로 가르치셨다. 그는, 혼에는 참된 성격 변환의 영구한 결과를 잘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진리를 알아보고 복음의 영적 호소에 응답하는 사람의 영적 본성이 거하고 있고, 마음은 그 혼에 이르는 대문으로서 그렇게 깨어나고 되살아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52:6.5 (1705.5) 예수는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머지않아 겪게 될 충격—단지 며칠이 남아있는 그에 대한 대중의 태도에서 다가올 위기—에 대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12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종교 통치자들이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헤롯 안티파스와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2 사도들은 예수가 다윗의 왕좌에 앉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좀 더 충만하게 (최종적이지는 않았지만)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영적 진리가 물질적인 이적을 통해서 전진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더 알게 되었다. 그들은 5,000명을 먹인 것과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던

민중운동이 기적을-찾고, 이적-행함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정점이었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군중들의 환호의 절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영적으로 걸러지고 그리고 모진 역경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어렴풋이 인식하고, 희미하게 예견하였다. 이들 12명 사람들은 서서히 왕국 대사로서의 자신들 과업의 진정한 본성의 실현으로 깨어나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주(主)의 사명활동에 있어서의 마지막 해의 괴롭고 시련이 되는 엄격한 고난에 대비하여 자신들의 각오를 단단히 하기 시작하였다.

152:6.6 (1706.1) 그들이 게네사렛을 떠나기 전에 예수는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인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설명하였으며, 그들에게 정말 왜 이러한 창조 힘의 비범한 현시활동을 나타냈는지를 말했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이것이 “아버지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그가 확정했기까지는 군중들에 대한 자신의 동정심에 그렇게 따른 것이 아님을 단언하였다.

제 7 장. 예루살렘에서

152:7.1 (1706.2) 4월 3일 일요일에 예수는 12사도들을 데리고 벳세다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하였다. 군중들을 피하고 가능한 한 관심을 적게 끌기 위하여, 그들은 게라사와 필라델피아를 경유하여 여행하였다. 그는 이 여행 중에 어떤 대중 가르침도 그들이 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그들이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에 4월 6일 수요일 밤 늦게 도착하였다. 이날 밤은 함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묵었지만 그러나 다음 날에 그들은 나뉘어졌다. 예수는 요한과 베다니 나사로 집 근처에 있는 시몬이라고 불리는 신도의 집에서 묵었다. 가롯 유다와 시몬 젤로떼는 예루살렘에 있는 친구들 집에서 묵었으며, 나머지 사도들도 둘씩 다른 가정에 체류하였다.

152:7.2 (1706.3) 예수는 유월절 동안에 단 한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은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많은 예루살렘 신도들이 아브너에 이끌려 예수를 만나러 베다니로 나왔다. 예루살렘의 체류 기간 동안에 12사도들은 주(主)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이 얼마나

악화되어가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들 모두는 위기가 곧 닥쳐왔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루살렘을 떠났다.

152:7.3 (1706.4) 4월 24일 일요일에 예수와 사도들은 벳세다로 가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해변도시들인 요파, 케자리아, 프톨레마이스를 경유하며 여행하였다. 거기서부터 육로로 그들은 라마, 코라진을 지나 4월 29일 금요일에 벳세다에 도착하였다. 집에 도착하면서 즉시, 예수는 안식일인 다음 날 오후 봉사예배에 그가 회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해줄 것을 요청해 보라고 안드레를 회당 지배자에게 보냈다. 그리고 예수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그것이 마지막 기회가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다.

제 153 편 가버나움에서의 위기

153:0.1 (1707.1) 그들이 벳세다에 도착하였던 금요일 밤과 안식일 아침에, 사도들은 예수가 어떤 중대한 문제로 매우 심각하게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주(主)가 그 중대한 문제에 매우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으며 한밤중에도 식사를 거의 안하였다. 안식일 오전 내내 그리고 저녁

전까지 12사도들과 연관-동료들은 집 주위와 정원과 해변가를 따라가며 작은 무리를 지어 모여 있었다. 불확실에 대한 긴장과 체포되는 불안으로 인한 조바심이 모두를 덮었다. 예수는 예루살렘을 떠난 이래로 그들에게 거의 말씀이 없었다.

153:0.2 (1707.2) 그들은 주(主)가 그렇게 어떤 일에 몰두되어 말이 없는 모습을 여러 달 동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시몬 베드로까지도, 기가 꺾인 것은 아닐지라도, 우울해 하고 있었다. 안드레는 자신의 풀이 죽어 있는 연관-동료들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해하였다. 나다니엘은 그들이 "폭풍전의 고요"의 한 가운데에 있다고 말했다. 도마는 "어떤 특별한 일이 막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고 자기의견을 표현하였다. 빌립은 세베대의 아들 다윗에게 "우리가 주(主)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기 전까지는 군중들을 먹이고 채우는 계획을 잊어버려라."는 조언을 하였다. 마태는 재정을 다시 채우기 위하여 새로운 노력을 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번에 가지는 회당에서의 설교에 대하여 얘기했고 그리고 그 가능한 성격과 범위를 많이 추측해 보았다. 시몬 젤로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뜻밖의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옹호하고 지지하기 위하여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실체 안에서 희망을, 표현했다. 한편 가롯 유다는 예수가 아마도 "그가 5,000명의 사람들이 그를 유대의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할 용기와 대담성을 갖지 못했다."는 후회로 짓 눌려있다는 생각을 감히 하고 있었다.

153:0.3 (1707.3) 그렇게 우울하고 마음 둘 곳을 몰라 하는 추종자들을 데리고 예수가 그 아름다운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의 신(新)시대를-만드는 설교를 하기 위하여 나가셨다. 그의 측근 추종자들에서 나온 씩씩한 인사나 혹은 축복의 말은, 오직 의심 없는 알패오 쌍둥이 형제중 하나에서 나왔고, 그는, 예수가 회당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설 때, 명랑하게 그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아버지께서 당신께 도움을 주실 것과,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군중이 오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제 1 장. 무대의 준비

153:1.1 (1707.4) 새로 지은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이 매우 아름다운 안식일 오후 3시에 저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회중이 예수를 맞이하였다. 야이루스가 사회를 보았으며, 그는 예수에게

그가 읽을 성서를 건네주었다. 그 전날 53명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착하였다. 또한 근처 회당들에서도 30명이 넘는 영도자들과 통치자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 이들 유대 종교 영도자들은 전적으로 예루살렘 산헤드린으로부터의 명령에 따라 활동하고 있었고, 그들은 정통파의 선봉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 공개적인 싸움을 개시하러 온 것이었다. 이들 유대 영도자들의 옆자리, 회당의 명예 석에는, 헤롯 안티파스의 공식 관찰자들이 앉았으며, 그들은 헤롯의 형제인 빌립의 관할 구역에서 일어난, 민중들이 예수를 유대의 왕으로 선포하려 했다는 불순한 보고에 관한 진상을 확인하라는 지도를 받았다.

153:1.2 (1708.1) 예수는 그가 날로 늘어나는 적들이 공언하던 공개투쟁이 즉시 선포되는 것을 직면하고 있음을 아셨고, 그는 대담하게 공격적 자세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5,000명을 먹인 일에서, 그는 그들의 물질적 메시아의 개념에 도전하였다; 이제 그가 다시 공개적으로 유대 해방자에 대한 그들의 관념을 공격하기로 하였다. 5,000명을 먹인 사건으로 시작되었고 이 안식일 오후

설교로 종결되는 이 위기는, 일반민중의 칭송과 환호의 파도를 밖을 향해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후부터 왕국의 일은, 인류의 진정한 종교적 형제 됨을 위하여, 영속(永續)하는 영적 전향으로 승리를 거둔다는 더욱 중요한 과업에 점점 더 상관하게 되었다. 이 설교는 토의, 논쟁 그리고 결정의 기간에서부터, 그러한 공개적인 싸움, 그리고 그러한 최종적인 찬동 또는 최종적인 배척으로 옮겨가는 위기의 시작점이 되었다.

153:1.3 (1708.2) 주(主)는 많은 추종자들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결국에는 그를 배척하는 쪽으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아셨다. 또한 자신의 많은 제자들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마음의 훈련과 혼의 단련을 통하면서 그들의 의심을 정복하고 용감하게 왕국 복음 안에서 그들의 충만하게-자란 신앙을 주장할 것이라는 점도 또한 아셨다. 예수는, 되풀이 되는 선과 악의 상황에서 거듭하여 선택하는 느린 과정에 따라서, 위기에서의 결정과 그리고 용기 있게 선택하는 갑작스런 행위를 위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납득하였다. 그는 자기가 선택한 메신저들을 실망 안에서 반복적인 시행 연습을 겪게

만들었으며, 그들에게 영적 시련을 만나게 되는 옳고 그릇된 방법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빈번하고 훈련이 되는 기회들을 제공하였다.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이 마지막 시험을 겪게 될 때, 그들이 이전에 앞서 있었던 그리고 습관화된 정신적 태도와 영적 반응에 따라서 그들의 생사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그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153:1.4 (1708.3) 예수의 이 세상 일생에서의 이 위기는 5,000명을 먹인 것으로 시작해서 회당에서의 이번 설교로 끝이 났고, 사도들의 삶에서의 위기는 회당에서의 설교로 시작하여 한 해 전체를 계속하였으며, 주(主)의 재판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끝이 났다.

153:1.5 (1708.4) 예수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 그들이 그날 오후에 회당에 앉아 있는 중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큰 신비, 오직 하나의 최대 의문이 있었다. 그의 친구들이나 그의 적들 모두가 단 하나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왜 그는 그렇게 고의적이며 효과적으로 민중의 열광의 물결에 등을 돌리는 것일까?” 불만에 찬 그의 추종자들의 그 의심과 실망이 무의식적인 반감을

유발시켰고, 결국에는 실재적 증오로 바뀌게 된 것은 이 설교 바로 전과 바로 후의 일이었다. 가룟 유다가, 그의 떠날 생각을 처음으로 의식하여 품어 본 것이 바로 이 회당 설교 후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당분간은, 그러한 모든 의향을 효과적으로 억눌렀다.

153:1.6 (1708.5) 모든 사람들이 혼동된 상태에 있었다. 예수는 그들로 하여금 말문이 막히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최근에 그의 전 생애를 특징짓는 초자연적 능력의 가장 위대한 실증을 실시하였다. 5,000명을 먹인 사건은 그의 이 세상 일생에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개념에 가장 가깝게 갔었던 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절호의 기회는 그가 왕이 되기를 즉석에서 그리고 명백하게 거절함으로써 즉시 그리고 설명할 필요도 없이 바로 상쇄되었다.

153:1.7 (1709.1) 금요일 밤과 안식일 오전에 예루살렘 영도자들이 야이루스에게 예수가 회당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다시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요청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야이루스는 단지 모든 요청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이미 이 요청에 승낙을 했으며, 이제 와서 나의 말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제 2 장. 신(新)시대의 설교

^{153:2,1 (1709.2)} 예수는 신명기에 있는 율법을 읽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였다: “만약 이 백성이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의 적들로 너희를 치게 하여 이 세상 왕국에서 너희를 없앨 것이다. 주님께서 너와 그리고 네가 네 위에 세운 임금을 낯선 민족의 손안에 둘 것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경악의 대상과 이야깃거리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 아들과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있는 낯선 자들이 드높여지어 권한을 가질 것이고 반면 너희는 매우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언제까지나 임할 것인데 그것은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배척하여 나오게 될 너희 적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배고픔과 굶주림을 견뎌야 할 것이고 쇠로 만든 이러한 이국의 멍에를 지게 될 것이다. 주님은 먼 곳에서, 땅 끝으로부터 한 민족을 불러들여 너희를 배척하게 할 것이며, 너희는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사나운 모습의 민족이며 너희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가 매우 의존하는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온 땅이 그들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적들의 너희에 대한 압제가 심함으로 말미암아, 이 포위 기간 동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몸의 열매인 너희 아들과 딸들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153:2.2 (1709.3) 그리고 예수는 그것을 다 읽으신 후에, 선지자에 관한 것으로 예레미야서에서부터 읽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나의 하인들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와 같이 되게 하고, 이 도시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주님의 집에서 이 말을 하자, 사제들과 선지자들이 들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주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고하라고 그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말하기를 마치게 되자, 그 사제들과 선생들이 그를 붙잡고 말하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집에서 예레미야를 둘러쌌다. 유대의 영주들이 이 일을 듣고 예레미야를 심판하러 앉았다. 그러자 사제들과

선생들이 영주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우리 도시에 반대하여 예언하였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모든 영주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너희가 들은 모든 말로써 이 집과 이 도시를 반대하는 예언을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주님 너희 하느님의 음성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선고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대로, 옳은 대로 하라. 그러나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녕코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는 주님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셔서,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였다.'

153:2.3 (1710.1) "그 당시의 사제들과 선생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재판관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하는 그의 말로서, 그들은 그를 줄로 달아매어 더러운 구덩이에 밀어 넣어 그가 진흙 속에서 겨드랑이까지 빠지게 하였다. 이것이 그가 임박한 정치적 타락에 대해 그의 형제들에게 경고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복종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이었다.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이 백성들의 사제들과 종교영도자들이 오늘날 그들의 영적 파멸을 그들에게 감히 경고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겠느냐? 너희 또한 대담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인도해주는 빛의 길을 걷기 거절하는 사람을 지적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선생을 죽이려고 할 것인가?

153:2.4 (1710.2) "나의 이 세상 임무의 증거로서 너희가 찾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가난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설교하는 동안, 너희의 힘과 위세의 지위를 방해하지 않았다. 우리는 너희가 존경하는 것들에 대해 적대하여 공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람의 두려움에-찬 혼에 대한 새로운 해방을 선포하였다. 나는 이 세상에 나의 아버지를 드러내 보이고, 이 세상에 하느님 자녀들의 영적 형제 됨, 하늘의 왕국을 설립하려고 왔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여러 번 나의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고 환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아버지는 너희에게, 더욱 증거가 되는 영적 변환과 갱생에 추가하여, 많은 물질적 이적의 현시활동을 허락하였다.

153:2.5 (1710.3) "내 손에서 너희가 찾는 새로운 표적은 무엇인가?

내가 선언하겠는데 너희는 이미 너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가졌다. 오늘 내 앞에 앉은 많은 이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겠는데, 너희가 지금 어떤 길로 가야할지 선택이 너희 앞에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호수아가 너희 선조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말했듯이, 오늘 너희 중의 많은 이가 갈림길에 서있다.

153:2.6 (1710.4) "너희 중의 일부는, 호수 건너편에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후 내가 안 보이자, 그 일주일 전 폭풍 있을 때 근처에 대피하고 있던 티베리아스의 어선을 전세 내어 타고 나를 찾아다녔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진리나 정의로움이나 혹은 너희의 동료들에게 봉사하고 돌보는 방법을 좀 더 알고자 함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일하지 않고 더 많은 빵을 갖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 혼들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편안하게 얻는 빵으로 배를 채우고자 함이었다. 너희는 메시아가 오면 그가 모든 선택된 백성에게 유쾌하고 편한 생활을 살아가도록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오랜 세월 동안 배웠다. 그러므로 그렇게 배워온

너희가 빵과 생선을 바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선언하겠는데, 그러한 것은 사람의 아들의 사명이 아니다. 나는 영적 해방을 선포하고,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고, 살아있는 신앙을 양육하기 위하여 왔다.

153:2.7 (1710.5) “나의 형제들아, 썩어질 고기를 열망하지 말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적 음식을 구하라. 그리고 이것이 받아먹을 모든 자들에게 아들이 주는 생명의 빵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생명을 한량없이 풍성히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하느님의 일을 행하려면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라고 물으면, 나의 대답은,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느님의 일이다.’라는 것이다.

153:2.8 (1710.6) 그리고 나서 예수가 이 새 회당의 들보를 장식하고 있는, 포도송이로 장식되어 있는 만나 항아리를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였다: “너희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만나—하늘의 빵—를 먹었다고 배웠다. 그러나 내가 말하겠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빵이었다. 모세는 너희 선조들에게 하늘의 빵을 주지 않았으나, 나의 아버지는 이제 진정한 생명의 빵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늘의 빵은

하느님께서 내리신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빵을 달라고 나에게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보아왔고, 나와 함께 살아 왔으며, 나의 일을 보았지만, 너희는 아직도 아버지로부터 내가 보내어졌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들에게-두려워함이 없으리라.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며, 나에게 온 자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153:2,9 (1711.1) "이제 내가 단호하게 선언하겠는데, 내가 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마지막 뜻이며,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어제는 단지 내가 육신의 빵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오늘은 너의 굶주린 혼을 위하여 생명의 빵을 준다. 너희가 그렇게 기꺼이 이 세상의 빵을 먹었던 것 같이, 이제 이 영의 빵을 먹겠느냐?"

153:2.10 (1711.2)

예수가 회중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자, 예루살렘에서 온 선생들 중 하나(산헤드린의 회원)가 일어서서 질문하였다: “당신이 하늘에서 내린 빵이며, 모세가 우리의 선조들에게 광야에서 주었던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빵이 아니라고 당신이 말씀한 것으로 내가 납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가 그 바리새인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바로 납득하였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말하였다: “그러나 당신은 목수 요셉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까? 당신의 부모와 형제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당신이 여기 하느님의 집에 나타났으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합니까?”

153:2.11 (1711.3)

이 무렵에 회당 안에서는 많은 수군거림이 일어났으며, 그러한 소동이 험악한 분위기를 자아내자, 예수가 일어나서 말씀하였다: “인내심을 가져라. 진리는 결코 정직한 시험으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이며 오히려 그 이상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들은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친 것만 오직 행하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선지자의 글에서 ‘저희가 다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 배운 사람마다 또한 아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라는 것을 읽었다. 아버지의 내주하는 영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자마다 결국에는 나에게 올 것이다.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의 영은 사람 안에 살고 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 온 아들, 그는 아버지를 확실히 보았다. 그리고 이 아들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153:2.12 (1711.4) “내가 곧 이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지만, 그러나 하늘로서 내려오는 이 빵을, 사람이 그것으로 먹으면, 영적으로 결코 죽지 아니하게 된다. 거듭하여 말하겠는데, 내가 곧 생명의 빵이고, 그리고 하느님과 사람의 이 연합된 본성의 실현을 달성하는 모든 혼들은 언제까지나 살 것이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줄 이 생명의 빵은 나 자신의 생명이며 또한 통합된 본성이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이니,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나의 전 일생을 바쳐 나타내주려는 것이며, 모든 민족에게 주는 나의 구원의 선물이다.”

153:2.13 (1711.5) 예수가 말씀을 끝마치자, 회당의 통치자는 회중을 해산시켰으나, 그들은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더 많은 질문을 하였고, 한편 다른 이들은 자신들끼리 수군거리고 논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련사들의 사태는 세 시간 이상이나 지속되었다. 그 청중들이 마침내 해산된 것은 일곱 시가 한참 지난 뒤였다.

제 3 장. 끝난 뒤의 모임

153:3.1 (1712.1) 이 끝난 뒤의 모임에서 예수는 많은 질문을 받았다. 혼동되어 있던 제자들로부터 얼마간의 질문이 있기는 하였지만, 많은 것들이 오직 그를 난처하게 하고 덧을 씌우기를 원했던 비신도 들로부터 질문되었다.

153:3.2 (1712.2) 방문 중인 바리새인 하나가 등불 받침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질문을 소리쳐 물었다: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고,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어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실행될 수가 없는 것이라면, 당신의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가 대답하여 말씀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살이 생명의 빵이거나 나의 피가 생명의 물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육신으로 사는 나의 생명이 하늘의 빵이 증여된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이 육신 안에 증여된 사실과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현상은, 신성한 양식과 동등한 그러한 체험의 실체를 구성하고 있다. 너희가 내 살을 먹을 수 없고 내 피를 마실 수는 없지만, 내가 영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인 것과 같이, 너희도 영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 너희는 참으로 생명의 빵인, 그리고 필사 육신의 모습 안에 증여되어 있는,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영양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참된 생명의 물인, 신성한 영에 의하여 혼(魂) 안에 물이 공급될 수 있다. 아버지는 그가 얼마나 모든 인간들에게 내주하여 지도하기를 열망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와 마찬가지로 내주하고 있는 하늘 아버지를 알고 그 뜻을 행하기를 언제까지나 찾아 나서도록 영감을 주기 위하여, 내가 육신으로 이 생명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153:3.3 (1712.3) 그러자 예수와 그의 사도들을 관찰하던 예루살렘의 첩자 하나가 말하였다: “당신이나 당신의 사도들은 빵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합니다. 당신은

더럽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그러한 실천 관행은 장로들의 법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물 잔이나 식기도 제대로 씻지 않습니다. 선조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법을 당신이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있음을 과시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가 대답하였다: “너희가 너희 전통의 법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은 어찌된 일이나? 그 계명이 말하기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였고, 그것은 너희에게 필요하다면 너의 재산을 나누어주라고 지도하였다. 그러나 전통의 율법은 불효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도움이 되었을 돈을 ‘하느님에게 드리지게’되었다고 말할 기회를 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장로들의 법은 책임감 없는 자녀들에게 핑계를 제공하여 주며, 결국 그러한 모든 재산을 자신들의 안락을 위해 쓰게 한다. 이런 식으로 너희 자신의 전통으로 계명을 피하는 것은 어찌된 일이나? 너희의 위선을 이사야가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명예롭게 여기되, 그들의 가슴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敬拜)한다.’

153:3.4 (1712.4) “너희가 사람의 전통에 빨리 매달리는데 반하여, 그 계명을 폐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전통을 유지하는 동안, 너희 모두는 하느님의 말씀을 기꺼이 거부한다. 그리고 많은 다른 방법으로 너희는 감히 율법(律法)과 선지자(先知者)들 위에 너희 자신의 가르침을 세워놓는다.”

153:3.5 (1712.5) 그리고 나서 예수는 참석해 있던 모든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였다: “너희 모두는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영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에서부터 그리고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들까지도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물었다: “듣는 이들 중의 어떤 이들에게 불필요하게 걸림이 될지도 모르니,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였다: “너 또한 납득하기가 어려우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모두 뽑힐 것을 알지 않느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너의 관심을 두어라. 사람들에게 진리를 사랑할 것을 억지로 강요할 수 없다. 이들 선생의 많은 이들은 눈먼 인도자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을 너는 안다. 도덕적으로 더럽고 영적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에 관한 진리를 내가 말할 동안에 잘 들어라. 내가 선언하건대, 입으로 몸에 들어가거나 눈이나 귀를 통하여 마음에 들어간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가슴 안에서 기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신성치 못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표현이 발견되는 그 같은 악에 의해서만 더럽혀진다. 악한 생각, 살인하려는 사악한 프로젝트, 도둑질, 간음과 질투, 자부심, 분노, 복수, 욕지거리, 거짓증거가 나오는 것이 가슴으로부터 입을 알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법이다.”

153:3.6 (1713.1) 이제 예루살렘 산헤드린의 바리새인 위원들은 예수가 신성모독 죄명으로는나 혹은 유대의 신성한 율법을 우롱한 명목으로 반드시 체포해야한다는 신념을 거의 굳혔다; 그런 이유로 해서 그들은 그가 소위 민족의 구전(口傳) 율법이라고 불리는 장로들의 법에 대하여 논쟁하고 공격하도록 그를 유도하였다. 아무리 물이 귀하더라도 이들 관습에 얽매인 유대인들은 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필수적인 의식(儀式)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았다.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 그 첩자들은 예수가 “구원은 깨끗한 손보다는 깨끗한 가슴의 문제이다.”라고 말하였다는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들은, 일단 자신의 종교의 한 부분이 되면 그로부터 떠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 날 이후 여러 해가 지난 후까지도 사도 베드로는 여전히 정결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들에 관한 이러한 많은 전통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 있었으며, 단지 끝에 가서야 비상하고 생생한 꿈을 체험한 후에 드디어 해방되었다. 이 모든 것은, 이들 유대인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매춘부와 거래하는 만큼이나 수치스럽게 여겼고, 그 둘 모두 추방을 당할 만한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여긴 것을 기억하면 보다 쉽게 납득될 수 있다.

^{153:3,7 (1713,2)} 따라서 주(主)는, 성서의 가르침보다도 더욱 신성하게 여겨졌고 더 많이 유대인들을 묶어 놓고 있었던 구전 율법—장로들의 법—으로 대표되는 규칙과 규제에서의 전체적인 랍비제도의 어리석음을 진상을 밝히고 토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이러한

종교 영도자들과의 파열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다 거리낌 없이 말씀하였다.

제 4 장. 회당에서의 마지막 말

153:4.1 (1713.3) 이 경배 후의 모임에서 토론하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하나가 예수 앞에 건잡을 수
없고 반역한 영에 사로잡혀 혼란을 겪고 있는 한 젊은이를
데려 왔다. 이 미친 젊은이를 예수 앞에 데리고 나와서 그가
말하였다: “이와 같이 고통 받는 자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주(主)가 그 젊은이를 바라보셨을 때, 그는 연민으로
감동되어서, 그 젊은이를 그에게 오라고 손짓하면서,
손으로 그를 붙잡고 말씀하였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로부터 나오너라. 네가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너의
충성스러운 동료 중의 하나에게 내가 명령한다.” 그러자 그
청년이 바로 정상으로 되었고 그리고 제 정신의 마음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가 실제로 인간 존재로부터 “악령”을
내쫓았던 첫 번째의 경우였다. 이전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단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고 여겨지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경우였으며, 그러한 일은 그 시절에 그리고 오순절 바로

전까지, 주(主)의 영이 모든 육신들 위에 쏟아 부어지자, 불안정한 부류의 인간존재를 그렇게 이용해 왔던 천상의 반역자들에게 그러한 일이 언제까지나 불가능하게 된 바로 그 때까지, 발생하고 있었다.

153:4.2 (1714.1) 사람들이 경탄을 하자, 한 바리새인이 일어나 비난하기를, 예수가 마귀와 한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가 이 마귀를 쫓아낼 때 사용한 언어는 그들이 서로 통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공표하기를, 예루살렘의 종교 선생과 영도자들은 예수가 행한 소위 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은 마귀들의 영주인 바알세불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고 말하였다. 바리새인이 말하였다: “이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 어떤 것도 있을 리 없다. 그는 사탄과 동반자이다.”

153:4.3 (1714.2) 그러자 예수가 말씀하였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왕국이 그 스스로 갈라지면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그 스스로 갈라지게 되면 그 집이 곧 망하는 법이다. 성(城)이 만일 연합되지 못하면 포위 공격을 막을 수 있느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추방하면,

그는 그 스스로 갈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들을 빼앗지 못하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만일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마귀들을 쫓아냈다면, 너의 자녀들은 누구의 힘으로 그들을 쫓아내느냐? 따라서 그들로서 너희 심판을 삼으라. 그러나 만일 하느님의 영으로 내가 마귀들을 쫓아냈다면, 하느님의 왕국이 진실로 너희에게 와 있다 너희가 편견 때문에 눈이 멀고 두려움과 자부심 때문에 잘못 인도되지만 았았더라면, 너희는 마귀보다 더 위대한 자가 너희 가운데에 서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나와 함께 있지 않은 자는 나를 배척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으면 흠어지는 자라는 것을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고 있다. 너희가 눈을 밝히 뜨고 의도적인 악의를 가지고, 하느님의 일을 악마들의 일이라고 고의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내가 엄숙히 경고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신성모독죄도 용서되지만, 누구든지 깊은 궁리로 그리고 사악한 의도로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끈질긴 사악한 불의의 일꾼들은 결코 용서함을 찾아 나서지도, 또는 받아들이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은 신성한 용서함을 영원히 거부한 죄를 지은 것이다.

153:4.4 (1714.3) “너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림길에 서있게 되었는데: 너희는 아버지의 뜻과 자아-선택한 어두움의 길 사이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결정해야하는 시작점에 와 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선택하는 대로, 너희가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무를 좋게 만들어 그 열매도 좋게 만들든지, 아니면 나무를 썩게 만들어 그 열매도 썩게 만들든지 해야만 없다. 나의 아버지의 영원한 왕국에서는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것을 내가 선언한다. 그러나 너희 중 일부, 독사처럼 있는 자들이 이미 악을 택하고 있으니 어떻게 너희가 선한 열매를 맺겠느냐? 결국은, 너희 가슴에 가득한 악을 너희 입이 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153:4.5 (1714.4) 그러자 다른 바리새인이 일어나서 말하였다: “선생님이여, 선생님의 권위를 세우시고 가르치실 권리를 우리가 알도록 우리에게 예증된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이

말을 듣고 말씀하였다: “믿음이 없고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너희가 이미 가진 것과 사람의 아들이 너희로부터 떠나갈 때 너희가 장차 보게 될 그것들 이외에는 너희에게 다른 표적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153:4,6 (1714.5) 그가 말을 끝마치셨을 때, 사도들은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는 그리고 그를 회당으로부터 모시고 나갔다. 그들은 말없이 벳세다의 집으로 함께 돌아갔다. 그들은 주(主)의 가르치는 방식의 갑작스런 변화로 모두 놀랐고 약간의 두려움마저도 느꼈다. 그들은 주(主)가 그렇게 공격적인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에 전혀 익숙해 있지 않았다.

제 5 장. 토요일 밤

153:5.1 (1715.1)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가 그의 사도들의 희망을 산산조각으로 부셔 놓았고 그들의 한껏 부풀은 기대를 꺾어 왔기는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실망과 슬픔 속으로 몰아 놓았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절망과 더불어 그들의 안전에 대한 실제 두려움까지 겹쳤다. 그들 모두는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그리고 완벽한 배척에 매우 놀랐다.

그들은 또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예기치 못한 대담함과 확고한 결정에 얼마간 겁이 났고 당황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 of 갑작스런 가르침의 방법의 변화에 매우 당황되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라면 그들은 좀 더 공격적인 이 태도에 환영을 표명했을 것이었지만, 그러나 전혀 기대하지 않은 채 일어났던 그 일은 그들을 매우 놀라게 만들었다.

153:5,2 (1715.2) 그리고 이 모든 근심 걱정 외에도,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가 식사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는 몇 시간 동안을 다락방에 홀로 올라가 계셨다. 자정 가까이에 전도자들의 영도자인 요압이 돌아와서 그에게 연관-동료들의 약 삼분의 일이 목적을 포기하여 가버렸다고 보고하였다. 밤 내내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오가면서 주(主)를 향한 감정의 돌변이 가버나움에 일반적이라는 것을 보고했다. 예루살렘에서 온 영도자들은 이러한 불신의 감정을 부추기기 위하여 빠른 행동을 개시하였고, 예수와 그의 가르침에서 그들을 멀리하게 하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시험의 기간 동안에 12명의 여자 대원들은 베드로의 집에서 회합을 가졌다.

그들은 엄청나게 격동되었으나, 아무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

153:5.3 (1715.3) 예수가 다락방에서 내려와 약 30명 의 12사도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 가운데로 오신 시간은 자정이 좀 지난 후였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왕국이 이렇게 사람을 채질하여 선별한다는 것이 너희를 슬프게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너희가 그 모든 훈련을 받고서도, 어째서 여전히 내 말에 흔들리는지 무슨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왕국이 그러한 미지근한 군중들과 반신반의하는 제자들을 벗겨내어 버리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두려워하고 대경실색하느냐? 하늘의 왕국의 영적 가르침이 새로운 영광으로 빛나며, 새날이 동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찌하여 슬퍼한단 말이나? 너희가 이 시험도 견디기 어려워하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할 때,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내가 이 세상으로 오기 이전의 곳으로 올라갈 때, 언제 그리고 어떻게 너희 자신들을 준비하겠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되살아나는 것은 영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육신과 그것에 속한 것은 모두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그리고 생명이다. 용기를 내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이 나날들의 명백한 말이 많은 자에게 걸림이 되리라. 너희는 이미 나의 많은 제자들이 등을 돌렸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나는 이러한 반신반의하는 신도들이 도중에 떨어져 나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너희 12사람들을 특히 선택하여 왕국의 대사들로 따로 준비하지 않았더냐? 지금과 같은 그러한 때가 오면 너희도 떠나겠느냐? 너희 각자는 자신의 믿음을 보아라, 이는 너희 중의 하나가 심각한 위험 안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예수가 말을 끝마치시자, 시몬 베드로가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슬프고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주(主)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主)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었으며, 항상 당신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주(主)를 하느님께서 보내신 것을 알기에,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마치자, 그들 모두는 그의 충성의 서약에 동의한다는 표시로 하나가 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153:5.5 (1716.1) 그러자 예수가 말하였다: “가서 쉬어라. 바쁜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활발히 일할 날들이 목전에 와 있다.”.

제 154 편 가버나움에서의 마지막 나날

154:0.1 (1717.1) 4월 30일 그 사건 많은 토요일 밤에 예수가 그의 풀이 죽고 어리둥절해 있던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있을 때, 티베리아스에서는 헤롯 안티파스와 예루살렘 산헤드린을 대표하는 특별 위원들의 집단사이에 협의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헤롯에게 예수를 체포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들은 예수가 사람들을 선동시켜 분쟁을 꾀하고 있으며, 반역까지도 시도하리라는 것을 그에게 설득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나 헤롯은 그를 정치범으로 체포하기를 거절하였다. 헤롯의 충고자들이 그에게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선포했던 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그 제안을 거절했었는지 호수 건너편에서의 에피소드를 정확하게 보고했었다.

154:0.2 (1717.2) 헤롯의 공인된 가족의 한 사람인 추자의 부인이 여자 사명활동 집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추자는 헤롯에게 예수는 이 세상 통치에서의 관련사에 관한 간섭은 제안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그가 오로지 관여했던 그것은 그의 신도들의 영적 형제신분을 확립하는 것이었으며, 바로 그 형제신분을 그가 하늘의 왕국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그는 추자의 보고에 신뢰하였고, 아주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활동을 가로막는 것을 거절하였다. 헤롯은 또한 이때에, 세례자 요한에 관한 그의 미신적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대하는 그의 태도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헤롯은 변절한 유대인들 중의 하나로서, 아무 것도 믿지 않는 반면에 또한 모든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는 세례자 요한을 죽인 것이 항상 양심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음모에 끼어들기를 꺼려하였다. 그는 예수가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선지자나 비교적 해가 없는 종교적 열광자로 보았다.

154:0.3 (1717.3) 유대인들이 그가 반역자를 보호한다고 황제에게 보고하겠다고 그를 협박하자, 헤롯은 회의장에서 그들을 당장 퇴장시키라고 명령하였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은

일주일 동안 유보되었고, 그 동안 예수는 급하게 다가올 분산에 대하여 그의 추종자들을 준비시켰다.

제 1 장. 한 주간의 회의

154:1.1 (1717.4)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예수는 세베대의 집에서 그의 추종자들에게 매우 친밀한 조언을 주었다. 단지 단련 받고, 믿을만한 제자들만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때쯤에는 바리새인들의 반대에 용감하게 도전하는 도덕적 용기를 가졌으며, 공공연하게 자신들이 예수께 속해 있다고 선언했던 제자들은 겨우 100여명 정도였다. 이 집단을 데리고 예수는 아침, 오후, 저녁 회합들을 가졌다. 해변에서는 질문을 하러 온 소규모 집단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며, 거기에서 약간의 전도자들이나 사도들이 그들에게 강연했다. 이러한 사람들의 집단은 거의 50명을 넘지 못하였다.

154:1.2 (1717.5) 이 주일의 금요일에 가버나움 회당의 통치자가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느님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공식 발표를 하였다. 이 처사는 예루살렘 바리새인들의 음모로 이루어졌다.

야이루스는 우두머리 통치자의 자리에서 사직하고, 공공연하게 예수와 합세하였다.

154:1.3 (1718.1) 마지막 해변 회합이 5월 7일 안식일 오후에 있었다. 예수가 그때에 모여 있던 150명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토요일 밤은 예수와 그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인기의 조수(潮水)가 가장 낮은 썰물인 때였다. 이때 이후로는 안정적인, 느렸지만, 호의적인 정서로 좀 더 건강하고 믿을만한 성장이 있었다; 새로운 추종자가 영적 신앙과 진정한 종교적 체험 속에 더욱 튼튼한 기초를 이루는 무리로 모여졌다. 주(主)의 추종자들이 가졌던 왕국에 대한 물질적인 개념과 예수가 가르쳤던 좀 더 이상적이며 영적 개념사이에서의 다소간 혼합되고 타협적이었던 과도기 단계가 이제 그 종말을 고하였다. 이 때 이후로는 그 범위에서 더욱 넓게, 그리고 그 영적 함축성에서 더욱 멀리-퍼짐 속에서 왕국 복음의 더욱 공개적인 선포가 되었다.

제 2 장. 일주일의 휴식

154:2.1 (1718.2) 기원후 29년, 5월 8일, 일요일에 산헤드린은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팔레스타인의 모든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는 법령을 통과하였다. 이것은 예루살렘 산헤드린에 의한 새로운 전례에 없던 권리 침해였다. 그때까지는 각 회당은 하나의 독립된 경배자들의 모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였으며, 그 자체 이사회와 규칙과 지도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단지 예루살렘 회당들만이 산헤드린의 권한에 종속되어 있었다. 산헤드린의 이러한 즉석 결정 이후에 그곳의 5명의 위원들이 사직하였다. 100명의 메신저들이 즉각적으로 이 법령을 전하고 실행시키기 위하여 파견되었다. 2주간의 짧은 기간에 헤브론 회당을 제외한 팔레스타인의 모든 회당은 산헤드린의 이 성명서를 따르기로 하였다. 헤브론 회당의 통치자들은 산헤드린이 자신들의 회중에 대한 그러한 간섭을 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예루살렘의 법령을 따르기를 이렇게 거절한 것은 예수의 주장에 대한 공감이기보다는 회중의 자율성이라는 그들의 주장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헤브론 회당은 불에 타서 파괴되었다.

154:2.2 (1718.3) 같은 그 날 일요일 아침에 예수는 일주일의 휴가(休暇)를 선언하였고,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그들의

고통스러운 혼을 쉬게 하며, 또한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기 위해 집이나 친구들에게 가라고 종용하였다. 그가 말씀하였다: “너희가 왕국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가를 즐기거나 고기를 잡으러 여러 곳을 다니도록 해라.”

154:2.3 (1718.4) 휴식을 위한 이 일주일 동안에 예수는 해변 주위에 있는 많은 가족들과 무리들을 방문하실 수 있었다. 그는 또한 다윗 세베대와 여러 번 고기를 잡으러 갔었고, 한편으론 많은 시간을 혼자 지내셨다. 가까이에는 항상 다윗이 가장 신임하는 2-3명의 메신저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들은 예수의 신변 보호와 관련하여 그들의 상관의 명령을 받고 있었다. 이 휴식의 주간에는 어떤 종류의 대중 가르침도 없었다.

154:2.4 (1718.5) 이 주간에 나다니엘과 야고보 세베대가 심한 병을 앓게 되었다. 그들은 3일을 밤낮으로 고통스런 소화 불량으로 심하게 앓았다. 셋째 날 밤에 예수가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를 쉬도록 보내시고, 자신의 고통 받는 사도들을 돌보셨다. 물론 예수는 이 두 사람들을 즉시 고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세계에 있는 사람의 자녀들의, 이러한 평상시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다루는데 있어서 아들이나 아버지의 그 어느 쪽의 방식도 아니다. 결코 한 번도 육신으로서의 그의 사건 많은 일생 동안 내내, 예수는 그의 이 세상(地上)의 가족 중 어느 식구에게나 혹은 그의 측근(側近) 추종자의 어느 누구를 위하여 어떤 종류의 초자연적인 사명활동을 베풀지 않았다.

154:2.5 (1719.1) 필사 창조체들의 진화하는 혼(魂)의 성장과 발달, 진보적인 완전성을 위하여 제공된 체험훈련의 한 부분으로써, 우주의 어려움을 당면해야만 하고, 행성의 장애물을 마주쳐야만 한다. 인간 혼의 영성화는 광범위한 실제 우주문제들의 교육적인 해결이 되는 직접적인 체험을 요구한다. 동물적인 본성과 낮은 형태의 의지를 가진 창조체는 순탄한 환경 아래에서는 순조롭게 진보하지 않는다. 문제를 가진 환경은, 전력을 다 기울이는 자극과 연결되어지고, 필사 진보의 가치 있는 목적을 성취하고 영적 운명의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도달하는데 힘차게 기여하는 그러한 마음, 혼, 그리고 영의 활동을 만들어내도록 도모한다.

제 3 장. 두 번째 티베리아스 회의

154:3.1 (1719.2) 5월 16일에 티베리아스에서 예루살렘과 헤롯 안티파스의 권력자들 사이에 다시 한 번 회의를 갖게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영도자들 모두가 그 회의에 참석하였다. 유대의 영도자들은 헤롯에게 갈릴리와 유대지방의 모든 회당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하도록 실천적으로 문을 닫았다는 보고를 할 수 있었다. 헤롯에게 예수를 체포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지만, 헤롯은 그들의 청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5월 18일에 헤롯은, 만약 유대지방의 로마인 통치자가 그러한 계획에 같은 생각이라면, 산헤드린의 권한으로 예수를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종교적인 죄로 재판을 받도록 허락한다는 안에 찬성하였다. 그러는 동안 예수님의 적들은 쉴 새 없이 갈릴리 전역에 헤롯이 예수께 적의를 품었으며,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모든 자들을 처형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소문을 널리 퍼뜨렸다.

154:3.2 (1719.3) 5월 21일 토요일 밤에 예루살렘 정부 당국은 예수가 체포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송되고 유대 민족의 신성한 율법을 모독하였다는 죄로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는 헤롯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내린

합의에 아무 이의가 없다는 전갈을 티베리아스에 보내왔다. 따라서 이날 자정 바로 전에 헤롯이 산헤드린의 관리들에게 헤롯의 관할권 안에서 예수를 체포하여 그를 강제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법령에 서명하였다. 헤롯이 이 허락을 내리기전에, 떠안아야 했던 여러 곳에서의 강한 압력이 있었으며, 그는 예수가 예루살렘의 그의 모진 적들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제 4 장. 가버나움에서의 토요일 밤

^{154:4.1 (1719.4)} 같은 이 날 밤인 토요일에 가버나움에서는 50명의 영도하는 시민들이 회당에 모여 다음의 중대한 질문을 놓고 토론에 들어갔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은 자정이 지나서까지 이야기하고 논쟁해 보았으나, 동의를 볼 아무런 공통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예수가 어쩌면 메시아, 적어도 성스러운 사람 아니면 아마 선지자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약간의 사람을 제외하고, 그 회의에서 예수에 대한 견해가 거의 똑 같은 네 개의 집단들로 갈라졌다:

^{154:4.2 (1719.5)} 1. 그는 망상적이며 아무 해가 없는 광신자임.

154:4.3 (1719.6) 2. 그는 반역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위험한 선동자임.

154:4.4 (1720.1) 3. 그는 악마들과 연대한 자로서 어쩌면 악마들의 영주일지도 모르는 자임.

154:4.5 (1720.2) 4. 그는 정신이 나간 자로서 정신적 균형이 잡히지 않은 미친 자임.

154:4.6 (1720.3) 일반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있었던 예수가 가르치는 교리에 관하여 많은 말들이 있었다. 그의 적들은 예수의 가르침이 비 실천적인 것이어서, 모든 사람이 그의 관념에 따라 살아가려는 진정한 노력을 한다면, 아마도 모든 것들은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많은 후세 세대들의 사람들도 같은 것을 말하였다. 이 계시를 받는 좀 더 깨우친 시대에도, 지적이고 선의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현대 문명이 예수의 가르침 위에 세워질 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부분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그렇게 의심을 품는 자 모두는 훨씬 더 좋은 문명이 그의 가르침 위에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과 또 언젠가는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소위 그리스도교라 하는 교리를 따르려는 어정쩡한

시도가 종종 있었기는 하였지만, 이 세상은 결코 예수
의 가르침을 큰 규모로 실행하려고 진지하게 애쓴 적이
없었다.

제 5 장. 사건 많은 일요일 아침

154:5.1 (1720.4) 예수의 일생에서 5월 22일은 사건 많은 날이었다.
이 일요일 아침 날이 새기 전에, 다윗의 메신저 하나가
티베리아스로부터 급하게 도착해서 헤롯이 산헤드린의
관리들로 하여금 예수를 체포할 것을 이미 허락했거나,
아니면 막 허락하려는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였다. 이
급박한 위험의 소식을 받음으로 인하여 다윗 세베대는
그의 메신저들을 깨워 그 지방의 제자들의 모든
집단들에게 보내어 그날 아침 7시에 비상 회의에
소집하라는 말을 전하게 하였다. 유다(예수의 동생)의
처제가 이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서둘러
가까이에 살고 있던 예수의 가족 모두에게로 가서 즉시
세베대의 집으로 모이라는 전갈을 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급한 소집에 반응하여, 곧 마리아, 야고보, 요셉,
유다, 롯이 한자리에 모였다.

154:5.2 (1720.5)

이 이른 아침에 예수는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작별의 지도를 하였다. 그들이 곧 가버나움으로부터 해산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그들에게 얼마 동안의 작별을 일렀다. 그는 모두에게 인도를 하느님께 구할 것이며, 결과에 관계없이 왕국의 일을 수행하라고 지도하였다. 전도사들은 그들을 부르지도 모를 그 때까지 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대로 수고해야 했다. 그는 그를 동반할 12명의 전도자들을 선택하였다. 12사도들에게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와 함께 남아 있으라고 지도하였다. 12명의 여자 대원들에게는 자기가 그들을 부르러 보낼 때까지, 세베대와 베드로의 집에 남아 있으라고 지도하였다.

154:5.3 (1720.6)

예수는 다윗 세베대가 그의 전국에 걸친 메신저 봉사를 계속 담당할 것에 동의하였고 그리고 주(主)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면서 다윗이 말하였다: "주(主)여, 당신의 일로 나아가십시오. 편협한 자들이 주(主)를 체포하도록 하게 하지 마시고, 메신저들이 항상 주(主)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사람들은 절대로 주(主)와의 접촉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主)는 다른 지역들에서의 왕국의 일을

들을 수 있으실 것이며, 또한 우리는 당신께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이 봉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제가 제 다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책임자까지도 이미 임명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생도, 설교자도 아니지만,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나의 가슴속에 있고 그리고 나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154:5.4 (1720.7) 이 날 아침 7시 반경에 예수는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방안으로 모여든 거의 백 명이 되는 신도들에게 작별의 말을 시작하였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엄숙한 분위기 안에 있었으나, 예수는 매우 유쾌해 보였다. 그는 다시 한번 그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다. 몇 주간의 심각함은 지나갔으며,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 소망, 용기의 말로 영감을 주었다.

제 6 장. 예수의 가족이 도착함

154:6.1 (1721.1) 이 일요일 아침 8시경에 예수의 육친의 가족 다섯 명이 유다의 처제의 급한 전갈을 받고 그곳에 도착하였다. 그의 이 세상 가족들 중에서 단지 롯만이 전심으로 그리고 계속하여 이 세상에서의 그의 사명의 신성(神性)함을

믿었다. 유다와 야고보, 그리고 요셉까지도 여전히 예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부심이 그들의 좀 더 나은 판단과 실제적인 영적 성향을 방해하도록 용납하였었다. 마리아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사랑과 두려움, 모성애와 가족으로서의 자부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였다. 그녀는 의심으로 많이 시달렸지만,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가브리엘의 방문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정신이 나가서 미쳤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주입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그녀에게 아들과 함께 그에게 가서 더 이상 대중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렇게 그를 계속 내버려두면, 그 결과로 예수의 건강이 곧 악화될 것이며, 그것은 가족 전체에게도 불명예와 수치를 불러오게 할뿐이라고 마리아를 설득시켰다. 그래서 유다의 처제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다섯 명 모두 바로 세베대의 집을 향하여 떠났다. 그들은 전날 밤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바리새인들과 만났었다. 그들은 밤이 깊도록 예루살렘의 영도자들과 이야기했으며, 예수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과 그가 한동안 이상한 행동을 했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확신하게

되었다. 한편 롯은 그의 모든 행위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항상 가족들에게 공정하게 대하였음을 주장하였고, 그의 미래의 일을 중지하라고 설득시키는 것에 동의하기를 거절하였다.

154:6.2 (1721.2) 세베대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되풀이하였고 그리고 예수께 그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것을 설득시키기로 동의하였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나는 내 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안다."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를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재판을 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신변의 안전을 두려워했다. 예수가 대중의 눈에 인기가 있는 한, 그의 가족은 그 문제를 그대로 방관할 것이지만, 이제 가버나움 사람들과 예루살렘 영도자들이 갑자기 그에게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들은 상상되는 그들의 낭패한 입장의 수치에 대한 압박을 예리하게 느끼기 시작하였다.

154:6.3 (1721.3) 그들은 예수를 만나고, 그를 한쪽으로 데려가고, 그들과 함께 집으로 가도록 촉구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들은 그가 그 동안 가족들에게 소홀히 대한 것을 그들이 잊을 것이라는 것— 만일 그가 오로지 그 자신에게 문제만 일으키고, 또한 가족에게는 수치를 줄 수 있는 그 새로운 종교를 설교하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음을 오직 포기한다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잊을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확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롯은 단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오빠에게, 그가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바리새인들 때문에 설교를 그만 두기보다는 차라리 그가 죽음을 택하기를 나는 바란다고 말하겠습니다.” 요셉은 다른 가족들이 예수를 설득시키는 동안, 롯을 조용히 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154:6.4 (1721.4) 그들이 세베대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의 작별의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들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곳은 사람들로 인하여 넘치도록 붐비었다. 드디어 그들은 후문(後門) 쪽 현관에 자리를 잡았고, 귀속 말로 한 사람씩 전달하여, 마침내 시몬 베드로에게 속삭이게 되었고, 그는 이 말을 전하려고 그를 연설을 중단시키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 당신과 말하려고 매우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그의 어머니는 이 작별(作別)의 메시지가 그의 추종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은 적들의 도착으로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오랫동안 드러나게 거리가 멀어지고 난 후에, 그녀와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실재로 찾아 온 자비를 보였다는 사실을 보면, 그들이 기다린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곧 예수가 말을 중단(中斷)하고 그들을 만나러 나올 것이라고 그녀는 실제로 생각하였다.

154:6.5 (1722.1) 그것은 예수가 아버지의 사업을 돌보아야만 한다는 점을 그의 이 세상 가족이 이해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경우였다. 그리고는 그가 그 전달을 받은 후 말을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인사하러 달려 나오는 대신, 그의 듣기 좋은 음성이 커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은 아주 깊은 상처를 받았다: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나를 위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구하실 것이며, 나의 가족에게도 아무 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그리고 왕국의 아버지를 믿으라고 전하라. 하지만 모든 것이

지나면 결국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겠느냐?” 그리고 방 안에 모여 있던 그의 제자들 모두에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였다: “나는 아무런 어머니도 없고 아무런 동생들도 없다. 나의 어머니를 바라보라 그리고 나의 동생들을 바라보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 그리고 나의 자매이다.”

154:6.6 (1722.2) 마리아가 이 말을 듣자, 그녀는 유다의 품으로 쓰러졌다. 그들은 그녀가 마음을 추스르도록 그녀를 정원으로 데려갔다. 한편 예수는 그의 작별 메시지의 끝맺음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가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 볼 계획이었으나, 메신저가 급히 티베리아스로부터 도착해서 산헤드린 관리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위임장을 가지고 예수를 체포하러 오는 중이라는 말을 전하였다. 안드레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자, 예수의 말씀을 중단시키고 그 말을 전하였다.

154:6.7 (1722.3) 안드레는 다윗이 약 25명의 파수자들을 세베대의 집 주변에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갑작스럽게 그들을 체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 주(主)는 침묵을 지킨 채 거기에 서계셨으며, 한편으로는 정원에서는 “나에게는 어머니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던 그의 어머니가 충격으로부터 회복 도중에 있었다. 바로 이때에 그 방에 있던 한 여인이 일어나서, “당신을 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에게 가호가 있기를 비나이다.”라고 외쳤다. 안드레와 이야기하던 중에 잠시 예수가 몸을 돌려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아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가호가 있다.”

154:6.8 (1722.4)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은 예수가 그들을 납득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그가 그들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예수를 납득하지 못한 것은 바로 자기들이었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충분히 납득하였다. 예수는 어떻게 인간 존재들이 설교자의 웅변에 좌우되며, 마음이 논리와 이성에 반응하는 것처럼, 어떻게 의식이 감정적인 호소에 반응하는지를 아셨다. 그러나 그는 또한 사람들에게 과거를 끊으라고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운지 알고 계셨다.

154:6.9 (1722.5) 자기들이 오해되고 있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 동정심 많은 친구와 납득하는 조언자를 가진다는 것은 언제까지나 진리이다. 그는 사도들에게 사람의 적이 자신의 집안에서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었지만, 이러한 예언이 그렇게 빨리 그 자신의 체험이 되리라고는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자신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의 이 세상 가족을 버리지 않았다—그들이 그를 버렸던 것이었다. 나중에 가서, 주(主)의 죽음과 부활 후에 야고보가 초기 그리스도교 운동에 관여했을 때, 그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초기부터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을 말할 수 없이 괴로워했다.

154:6.10 (1723.1) 이러한 사건들을 헤쳐 나가면서, 예수는 인간 마음의 한정된 지식에 따라 행동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하나의 단순한 사람의 신분으로 그의 연관-동료들과 함께 그 체험을 겪기로 하였다. 그가 떠나기 전에 그의 가족을 만나보려고 했던 것은 예수의 인간 마음이었다. 그는 자신의 강연을 중도에서 멈추고 싶지 않았으며, 또한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후의 자기들의 첫 만남을 그렇게 대중적인 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말을 완결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떠나기 전에
그들을 찾아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바로 잇따라
일어난 사건들의 동시발생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

154:6.11 (1723.2) 그들이 서둘러 떠나가야 했던 일은 세베대의 집
뒷문에 다윗의 메신저가 도착함으로 증강되었다. 이
사람들에 의해 빚어진 법석으로 겁먹은 사도들은 이
새로운 도착이 아마도 그들의 체포자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앞문을
통하여 대기해 놓은 배를 타고 서둘러 떠났다. 이 모든 것이
왜 예수가 집의 후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의 가족을
만나러 가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154:6.12 (1723.3) 그러나 급하게 떠나느라 배에 오르는 와중에서도
그는 다윗 세베대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그들이 와 주어서 고맙다는 말과
내가 그들을 보려고 했었다는 말을 전해라. 그들에게 나를
무례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느님 뜻을 찾아서 알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은총과 용기를 구하라고
일러주어라.”

제 7 장. 황급한 도피

154:7.1 (1723.4) 그렇게 하여 기원후 29년, 5월 22일, 이 일요일 아침에, 예수는 그의 12사도들과 12명의 전도자들을 데리고, 헤롯 안티파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그를 체포하여 성스런 유대 율법을 모독한 죄와 다른 죄명으로 재판을 하기 위해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해 벳세다로 오고 있는 산헤드린 관리들을 피해 급하게 떠났다. 25명으로 이루어진 이 무리가 노를 저어 갈릴리 해의 동쪽 해안으로 간 것은 이 아름다운 아침에 거의 8시 반이 지났을 때였다.

154:7.2 (1723.5) 주(主)의 배 뒤에 또 다른 하나의 작은 배가 여섯 명의 다윗의 메신저들을 태우고 따라갔다. 그들은 예수와 그의 연관-동료들과의 접촉을 취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의 근황과 안전에 대한 보고를 당분간 왕국의 일의 본부가 되어있는 벳세다의 세베대의 집으로 정기적인 연락을 취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예수는 세베대의 집을 다시는 그의 거처로 정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그의 이 세상에서의 나머지 기간을 통하여 주(主)는 진정으로 “그의 머리를 둘 곳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안정된 거처나 그 비슷한 것도 갖지 않았다.

154:7.3 (1723.6) 그들은 게레사 동네 가까이까지 노를 저어갔다.

거기에서 친구에게 그들의 배를 맡겨놓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주(主) 일생의 이 사건 많은 마지막 해의 방황을 시작하였다. 한동안 그들은 게레사에서 케자리아-빌립보로 가면서 빌립의 권역 안에 머물러있었으며, 거기서부터 페니키아 해변으로 그들의 여정을 잡았다.

154:7.4 (1723.7) 이들 두 배들을 바라보며 세베대의 집 주변에

서성거리던 무리들은 동쪽 해안을 향해 호수를 건너 그들의 길을 갔다. 예루살렘 관리들이 서둘러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을 때는, 그들이 떠난 지가 이미 오래였다. 그들은 예수가 그들로부터 도피하였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예수와 그의 집단이 바타니아를 지나 북쪽으로 여행하는 동안에,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보좌관들은 가버나움의 근처에서 그를 찾느라 한 주일 내내 허비하였다.

154:7.5 (1724.1) 예수의 가족은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서

거의 일주일의 이야기와 논쟁과 기도를 하며 지냈다. 그들은 혼란과 놀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목요일 오후에 룻이 세베대의 집을 방문하여 다윗으로부터

그녀의 아버지-오빠가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페니키아 해안 쪽으로 그의 길을 가고 있다는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전까지는 편만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였다.

제 155 편 갈릴리 북부지방을 지나서 도피하다

155:0.1 (1725.1) 이 사건 많은 일요일에 게레사 근처에 도착한 직후, 예수와 24명의 제자들은 북쪽으로 좀 더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벳세다-줄리아스지역의 남쪽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공원에서 밤을 보냈다. 그들은 전에 이곳에서 며칠을 보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영지를 알고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主)는 제자들을 주위에 불러 바타니와 북부 갈릴리를 거쳐 페니키아 해변에 이르는 그들의 구체적으로 투사된 여행에 관하여 그들과 상의하였다.

제 1 장. 왜 이교도들이 분노하는가?

155:1.1 (1725.2) 예수가 말씀하였다: "너희는 시편 기자가 이 시대를 어떻게 묘사했는가를 기억해야한다. 그는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주님과 그 기름 받은 자를 배척하며, 자비심을 없애고 사랑의 계울을 던져 버리자 한다.’라고 하였다.

155:1.2 (1725.3) “오늘날 너희는 이것이 너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 그러나 너희는 시편 기자의 나머지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의 아들과 이 땅에서의 그의 사명에 대해서는 틀린 관념을 가졌었기 때문이다. 나의 왕국은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고, 자비 안에서 선포되고, 사심-없는 봉사로서 확립된다.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앉으셔서 이교도들을 비웃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격노하지 않으신다. 아들이 소위 이교도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실체 안에서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그의 형제들)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사실이다. 나는 이 이교도들을 자비와 사랑의 손을 벌려 받아들이는 것이다. 승리의 아들이 이교도들을 쇠막대기로 쳐서 질그릇처럼 산산조각으로 깨뜨릴 것이라는 불행한 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사랑 넘치는-친절함이 소위 이교도라고 불리는 이들 위에 내릴 것이다. 시편 기자는 너희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라’고 훈계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신앙을 통하여 신성한

아들관계라는 고귀한 특권을 갖도록 명령한다; 시편 기자는 너희들에게 떨어 기쁨을 향유하라고 명령한다; 나는 너희에게 확신을 갖고 기쁨을 향유하라고 명령한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그의 분노에 불이 붙을 때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와 이제까지 함께 생활해 온 너희는 분노와 노여움이 사람의 가슴속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이 훈계의 말을 완결하면서 '이 아들을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함으로써 그는 진리의 빛을 어렴풋이 보았다.

155:1.3 (1725.4) 예수는 스물네 명에게 계속 가르치시며 말했다: "이교도들이 우리에게 격노할 때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시야가 작고 좁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에너지를 열광적으로 집중할 수가 있다. 그들의 목표는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것들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용감하고 효과적인 집행으로 분투하고 있다.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갈 것을 고백한 너희는 대체적으로 가르치는 행위에서 너무나 동요되고 그리고 불명확하다. 이교도들은 자신들의 목적하는 바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쳐들어간다; 너희는 너무나도 많은 상습적인 염원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만일 너희가 왕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어째서 너희는 이교도들이 그들이 포위 공격한 도시를 차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 맹공으로 왕국을 차지하지 않는가? 만일 너희의 봉사가 대체로 과거를 뉘우치고, 현재에 와서는 애처롭게 보채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헛되이 희망하고 있는 태도로 이루어질 때는, 너희는 도저히 왕국에서의 가치가 없다.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쓸모없는 염원으로 시들어가는가? 왜냐하면 너희가 진리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의 소용없는 염원을 끝내라 그리고 왕국의 설립에 관련되는 일을 하면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155:1.4 (1726.1) "너희가 모든 일을 하는 중에, 일방적이라거나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치우치지 말도록 하라. 우리의 파멸을 모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하느님의 봉사에배를 하고 있다고 진정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전통에 너무 얽매어서 편견으로 눈이 멀었으며 두려움으로 굳어졌다. 그리스인들을 보라, 유대인들이

과학이 없이 종교를 가진 반면에, 그들은 종교가 없이 과학을 가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인도되어서 진리에서의 좁고도 혼동되어진 집대성-해체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에 그들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은 진리와-조화-협동되는 것—전향되어짐—뿐이다.

155:1.5 (1726.2) “나는 이 영원한 진리를 강조 한다: 만일 너희가 진리의 조화-협동으로 너희의 삶에서 이 아름다운 정의(正義)의 온전함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인다면, 너희의 동료들도 너희가 갖게 된 그 진리를 얻기 위하여 너희를 좇을 것이다. 진리의 탐구자들이 너희를 찾는 정도가 너희가 소유한 진리 자질, 올바름의 정도를 나타낸다. 사람들에게 전할 너희의 메시지를 가지고 너희가 가야만 하는 그 범위가, 어떤 의미로는, 온전하거나 혹은 의로운 일생, 진리와-조화-협동되는 일생을 너희가 살지 못하는 것의 척도이다.”

155:1.6 (1726.3)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그에게 밤 인사를 하고 잠을 자러 가기 전에 예수는 그들에게 다른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제 2 장. 코라진의 전도자들

155:2.1 (1726.4)

5월 23일 월요일 아침, 예수는 베드로에게 12명의 전도자들을 데리고 코라진으로 갈 것을 명하고, 그는 나머지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케자리아-빌립보를 향해 떠났다. 그들은 요단강을 지나 다마섹-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을 따라 가다가 북동쪽으로 방향을 돌려 케자리아-빌립보에 들어갔다. 그들은 그 곳에서 2주간 머물면서 가르쳤다. 예수의 일행이 도착한 때는 5월 24일 화요일 오후였다.

155:2.2 (1726.5)

한편 베드로와 전도자들은 코라진에 2주간 머물렀고, 그들은 그 곳에서 숫자는 적지만 진지한 신도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개종자들을 많이 얻지는 못하였다. 갈릴리 전 지역의 어떠한 도시에서도 코라진만큼 왕국을 갈망하는 혼이 거의 없었던 곳은 없었다. 베드로의 지시에 따라 12명의 전도자들은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보다는 하늘왕국의 영적 진리를 더욱 더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설교하였다. 코라진에서의 2주는 그때까지 겪어 온 중에서 가장 어렵고 비생산적이었다는 점에서 12명의 전도자들에게는 하나의 진정한 역경의 시련이 되었다. 따라서 왕국을 향하는 혼들을 얻는 만족을 빼앗기자, 전도자들 각자는 좀 더

진지하고도 솔직하게 그 자신의 혼의 모습과 그리고 새로운 일생의 영적 길을 따라가는 그 과정을 살펴보았다.

^{155:2.3 (1726.6)} 왕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는 듯 해 보이자, 6월 7일 화요일에 베드로가 그의 연관-동료들을 모두 불러 예수와 다른 사도들과 합류하기 위해 케자리아-빌립보 지방으로 떠났다. 그들은 수요일 정오경에 그곳에 도착해서 온밤을 코라진의 비신자들 사이에서 겪었던 자신들의 체험담을 이야기하느라 보냈다. 이날 밤의 토론 중에 예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관련하여 좀 더 이야기하였으며 그들에게 일생에서의 명백한 실패의 의미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제 3 장. 케자리아-빌립보 지방에서

^{155:3.1 (1727.1)} 비록 예수가 케자리아-빌립보 지방 근처에 머무르는 2주 동안 아무런 대중을 위한 일은 하지 않았음에도, 사도들이 그 곳에서 조용하게 수많은 밤 집회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신도들은 주(主)와 이야기하려고 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러나 이 방문으로 인하여 새로운 신도들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다. 매일같이 예수는 사도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으며, 그들은 하늘의

왕국에 대해 설교하는 자신들의 작업이 이제 새로운 위상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다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하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신성한 자녀 됨을 수용함으로써 얻는 영적 기쁨을 실현하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155:3.2 (1727.2) 케자리아-빌립보에서의 체류기간은 11명의 사도들에 대한 실제 시험기간으로써 그 2주 동안은 그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기간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의기소침했으며 베드로의 열정적인 개인성이 가져다주었던 간헐적인 자극을 그리워하였다.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는 일은 진정으로 위대하고 어려운 모험이었다. 2주 동안 개종자들은 거의 없었지만 그들은 매일 가졌던 주(主)와의 대화를 통하여 매우 유익한 것들을 많이 배웠다.

155:3.3 (1727.3)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진리를 하나의 교리로 구체화시킴으로써 영적으로 침체되고 죽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진리가 영적 안내와 진보의 이정표로서 봉사하는 대신 자아-정의로운 배타성의 경계선으로 형성될 때, 그러한 가르침들은 그들의 창조적이고 생명-

수여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궁극에는 단지 보존제와 화석(化石)화된다는 것도 깨달았다.

155:3.4 (1727.4) 그들은 예수로부터 인간의 개인성들을 시간과 영원 안에서의 그들의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점점 더 배우게 되었다. 그들은 많은 혼들이 먼저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가장 잘 인도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사람들에게 대한 사심-없는 봉사에 관한 예수의 다음과 같은 선언에도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의미가 가미되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155:3.5 (1727.5) 케자리아 체류기간 중 가장 큰 교훈 중의 하나는 신성하지 않은 물건들이나 일반적인 관념들, 또는 일상의 사건들에 신성함을 부여하는 데에서 오는 심각한 위험성이 따르는, 종교적 전통의 기원에 관한 것들이었다. 어느 한 회합에서 그들은 참된 종교란 자신의 가장 높고 가장 참된 신념에 대해 사람의 가슴에서 느끼는 충성이라는 가르침으로 솟아올라 창발 하였다.

155:3.6 (1727.6)

예수는 자신의 신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는데, 그것은 만일 종교적 열망이 단지 물질적인 것뿐이라면, 자연에 대하여 증가하는 지식은, 사물에 대하여 초자연적 기원이라고 상상했던 것을 점진적으로 대체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빼앗아 가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만일 그들의 종교가 영적인 것이라면, 물질적 과학의 발전이 결코 영원한 실체와 신성한 가치들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결코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155:3.7 (1727.7)

그들은 또한 종교의 동기가 전적으로 영적인 것일 때, 그것은 모든 일생을 더욱 더 값지게 만들어주며, 삶에 고귀한 목적을 부여하고, 초월적인 가치들로 삶을 존귀하게 하며, 훌륭한 동기로 삶에 영감을 주며, 항상 숭고하고 그리고 북돋아주는 희망으로 인간의 혼에 안식을 준다는 것을 배웠다. 진정한 종교는 실존의 긴장상태를 줄여주도록 고안되어 있다; 그것은 매일의 생활과 그리고 사심-없는 봉사를 위하여 신앙과 용기를 내어놓는다. 신앙은 영적 활력과 의로운 풍성한 결실을 촉진한다.

155:3.8 (1727.8) 예수는 반복해서 사도들에게 어떠한 문명도 그 종교의 최선을 상실했을 경우에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또한 그는 계속해서 12명에게 종교적 체험 대신 종교적 상징과 의식을 받아들이는 커다란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는 일에 결코 지치는 일이 없었다. 그의 이 세상의 전체 일생은 종교에서의 얼어붙은 형태를 녹여서 깨우친 아들관계의 물처럼 흐르는 해방으로 만드는 일에 한결같이 헌신하셨다.

제 4 장. 페니키아로 가는 길

155:4.1 (1728.1) 6월 9일 목요일 아침, 벳세다에 있는 다윗의 메신저들에 의하여 왕국의 사업의 진전에 관한 소식을 받은 후, 진리의 선생들인 이 25명의 집단은 페니키아 연안 지방으로의 여행을 시작하기 위하여 케자리아-빌립보 지방을 떠났다. 그들은 늪지대 지역을 돌아, 롯츠를 거쳐, 막달라-산 레바논의 오솔길과 만나는 곳으로 갔고 거기서부터 시돈으로 향하는 길을 가로질렀으며, 금요일 오후에 그 곳에 도착하였다.

155:4.2 (1728.2) 롯츠 근처 바위 그늘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쉬는 동안 예수는 사도들이 그와 동행했던 여러 해를 통하여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놀라운 말씀을 하였다. 그들이 빵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자마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主)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며 그의 영이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우리들을 후원하고 계신데, 어찌하여 우리는 적들의 위협을 피해 도망갑니까? 어째서 우리는 진리의 적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가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도마가 끼어들어 물었다: “주(主)여, 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의 적들의 종교에 어떤 그릇된 점이 있는지 실제로 알고 싶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우리의 종교에서 실제로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하느님을 섬긴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다양함에 처해 있는지요?” 도마의 질문이 끝나자 예수가 말씀하였다: “내가 베드로의 질문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유대인들의 통치자들과 공개적인 충돌을 피한 것에 대한 나의 이유를 오해하기 쉽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도마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택한다면 너희 모두에게 좀더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다. 그래서 너희가 점심을 마치고나면 그 답변을 해주겠다.”

제 5 장. 진정한 종교에 대한 설교

155:5.1 (1728.3) 이 기억에 남을 만한 종교에 대한 강연은 현대 용어로 요약하여 다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진리들을 표현하고 있다.

155:5.2 (1728.4) 이 세상의 종교는 이중적인 기원—자연적인 것과 계시적인 것—을 갖는데, 어느 한 시기에서든지 그리고 한 세상 사람 가운데에서든지 거기에는 세 가지의 뚜렷한 종교적 헌신의 형태들이 발견되도록 되어있다. 이 세 가지 종교적 현시활동은 다음과 같다:

155:5.3 (1728.5) 1. 원시 종교. 신비스러운 에너지를 두려워하고 우월한 기세를 경배하는 반(半)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충동으로서, 주로 물리적 자연의 종교, 두려움의 종교이다.

155:5.4 (1728.6) 2. 문명의 종교. 발전되는 종교적 개념들과 문명화된 종족들의 실천 관행—마음의 종교—, 확립된 종교적 전통의 권한을 가진 지적인 신학.

155:5.5 (1728.7) 3. 진정한 종교-계시종교. 초자연적인 가치들, 영원한 실체에 대한 부분적인 통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무한 성격인 선(善)과 아름다움(美)을 얼핏 보는

것—인간의 체험으로 실증되어지는 것으로서의 영의 종교.

155:5.6 (1729.1) 주는 물리적 감각의 종교와 그리고 자연스런 사람의 미신적인 두려움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원시적 경배 형태의 많은 것들이 좀더 지적인 인류 종족의 종교 형태 속에서 지속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개탄하였다. 예수는 마음의 종교와 영의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가 교회의 권한에 의해 지탱되는 반면에 후자는 전적으로 인간의 체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다.

155:5.7 (1729.2) 그런 다음 주께서 이 가르침의 시간을 통하여 다음의 진리들을 분명하게 하였다.

155:5.8 (1729.3) 종족들이 고도로 지적이 되고 더욱 충분히 문명화될 때까지는, 원시적이고 퇴보적인 사람들의 진화해가는 종교적 실천 관행들의 그 어떤 특징이 되는 그러한 유치하고도 미신적 의식(儀式)들 중 많은 것이 지속할 것이다. 인간 종족이 영적 체험의 실체를 보다 높은 차원에서, 그리고 좀더 전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많은 숫자의 남자들과 여자들이, 진보하는

인간체험의 엄중한 실체(實體)들과 맞잡아 겨루는 그 신앙 모험에서 마음과 영의 활발한 참여를 필요로 하는, 영(靈)의 종교와 대조되는,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저들 권위의 종교에 계속하여 개인적인 선호를 나타낼 것이다.

^{155:5.9 (1729.4)} 전통적인 권위의 종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영적 본성의 열망에 대한 만족을 찾는 사람의 충동을 위한 쉬운 방법을 제시한다. 안정되고, 결정화되고 그리고 확립된 권위의 종교들은, 두려움으로 시달리고 불확실성으로 고통 받을 때 이성을 잃을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의 혼이 도망칠 수도 있도록 그런 준비된 피난처를 잘 제공한다. 그러한 종교는, 그 만족과 확신을 얻는 데 지불되어야 할 대가(代價)로서, 단지 수동적이고 순전히 지적인 동의만을 신자들에게 요구할 뿐이다.

^{155:5.10 (1729.5)}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오랫동안, 그러한 소심하고, 두려움 많고, 망설이는 그렇게 그들의 종교적 위로를 확보하기를 선호하는 개별존재들이 살 것이다. 비록 그들이, 권위종교에 그들의 운명을 그렇게 내 던지면서, 그들은 개인성의 주권을 양보하고, 자아-존중의 존엄성을

떨어뜨리고, 또한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고 영감 어린 모든 가능한 인간 체험들과 여기에 참여하는 권리를 철저하게 포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종교적 위로를 확보하려고 기꺼이 나설 것이다; 다시말해 모든 가능한 인간 체험, 곧 스스로 직접적인 진리의 추구, 지적 발견이라는 모험에 직면하며 느끼는 흥분, 개인적 종교 체험의 실체를 탐사하려는 결심,—자기 자신에게서,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하느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모험, 곧 모든 인간 실존의 최극의 모험에서 정직하게 승리함으로서, 지적 의심을 이겨내는 영적 신앙의 승리를 실재로 실현하는 개인적 정복을 체험하는 최상의 만족, 이 모든 것과 여기에 참여하는 권리를 자신들의 종교적 위로를 확보하려고 철저하게 포기하는 것이다.

155:5.11 (1729.6) 영의 종교는 노력, 투쟁, 갈등, 신앙, 결정, 사랑, 충성, 그리고 발전을 의미한다. 마음의 종교—곧, 권위의 신학은 형식적인 신자들에게 이와 같은 노력을 거의 또는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전래 신앙은 두려움이 많고 건성으로 믿는 혼에게 안전한 피난처이며 쉬운 길로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진보하는 인간 마음으로 발견되고

그리고 진화하는 인간 혼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처럼, 영적 실체들의 아버지의 해안을 찾아나서는, 미개척된 진리의 높은 바다위에서 용기 있게 모험하는 그런 신앙의 항해와 관련된 정신적 망설임과 영적 투쟁을 피하려는 자들이다.

155:5.12

(1729.7)

그리고 예수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종교 영도자들이 그들의 전통적 스승들과 다른 시대의 예언자들이 전해 준 다양한 교리들을 하나의 확립된 지적 신념체계, 권위의 종교로 공식화시켰다. 그러한 종교들은 대개 마음에 호소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종교와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할 시점에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의 새로운 종교—그 단어의 지금-현재 의미에서의 종교가 아닌 종교, 사람의 마음 안에 살고 있는 내 아버지의 신성한 영에게 주로 호소를 드리는 종교; 더 높은 이 영적 교제의 진리 안에서 실제로 그리고 참되게 믿는 자가 되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 체험 안에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받아들이는 열매에서 그 권위가 이끌어내어지는 종교—를 선언할 것이기 때문이다.”

155:5.13 (1730.1)

24명의 제자들을 하나씩 각자의 이름으로 불러서
예수는 말씀하였다: “이제, 너희들 중의 어느 누구라도,
하나의 삶에 있는 살아있는 실체들의 아름다움들인 네
자신을 발견하는 것과 그리고 하늘의 왕국의 영원한
진리와 최극의 장엄함을 몸소 체험하는 그 만족을 네가
실현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람을 구원하는 더욱 좋은 길을
선언하는 사명에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어려움들과 박해로
고통 받기보다는, 차라리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확립되어진 그리고 화석화(化石化)된 종교를
따르는 이 쉬운 길을 선호할 것인가? 너희는 두려움에
차있고 심약하여 쉽게 얻고자 하느냐? 그의 자녀가
됨으로써, 너희의 아버지 되시는 진리의 하느님의 손에
너희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두려우냐? 그분의 자녀들인
너희가 아버지를 좀처럼 믿을 수 없느냐? 너희는 전통적
권위종교의 지적 안정성과 확실성이라는 쉬운 길로
되돌아가겠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영의 종교의 새로운
진리, 사람의 가슴속에 있는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는
불확실하고 힘든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가겠느냐?”

155:5.14 (1730.2)

24명의 사도들은 예수가 일찍이 하신 매우 드문
감정적인 호소 중의 하나인 이 말에, 그들의 연합되고

충성된 답변을 표하려고 시도하면서 다리를 펴며
일어섰지만, 그러나 예수는 손을 들어 이를 제지하고
말씀하기를 “이제 너희들끼리 가서 각자가 혼자서
아버지와 함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 질문에 대해
감정을 배제한 대답을 찾아내고, 그러한 참되고 진지한
혼의 태도를 발견하고 나서, 그 대답을 나의 아버지이시고
또 너희의 아버지, 그의 무한한 사랑의 생명이 우리가
선포하는 종교의 바로 그 영이 되는, 그 분께 자유롭게
그리고 용감하게 말씀드려라,”

155:5.15 (1730.3) 전도자들과 사도들은 잠시 동안 자기들끼리 따로
갔다. 예수의 가르침으로 인해 그들의 영은 드높아졌고,
그들의 마음은 영감을 받았으며, 그들의 감정은 힘차게
북돋아졌다. 그러나 안드레가 그들을 모두 한군데로
모았을 때, 예수는 단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여행을 떠나도록 하자. 페니키아로 가서 그
곳에 한 동안 머물 것이며, 너희 모두는 아버지께 너희의
마음과 몸의 감정들을, 마음의 더욱 높은 충성과 그리고
더욱 만족스런 영의 체험으로 변환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155:5.16 (1730.4) 그들이 여행하면서 길을 나설 때, 24명은 말이 없었으나, 곧 그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기 시작하였다. 그 날 오후 세 시쯤이 되자, 그들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그들은 멈추었고 베드로가 예수께 가서 말하였다: "주(主)여, 우리들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더 듣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들에 관하여 좀더 저희들에게 말해주시기 간청합니다."

제 6 장. 종교에 관한 두 번째 설교

155:6.1 (1730.5) 그래서 그들이 언덕의 그늘 아래에서 멈추어 쉬는 동안, 예수는 영의 종교에 관해 계속해서 가르쳤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55:6.2 (1730.6) 너희는 안전을 갈구하며 순종을 선호하는 자들, 마음의 종교에 만족하며 머무르기를 선택한 사람들로부터 빠져 나왔다. 너희는 권위주의적 확실성에 대한 너희의 감정을, 모험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의 영에 대한 확신으로 바꾸는 일을 선택한 것이다. 너희는 제도적 종교의 엄격한 속박에 대담하게 맞서 싸워 왔으며, 현재 하느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전통적인 기록의 권위를 과감히 거부해왔다. 우리의 아버지는 진정으로 모세, 엘리야,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였다. 그러나 이 옛 예언자들이 말을 끝낸 후에도, 그분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를 그만 두지 않았다. 나의 아버지는 진리의 말씀을 한 세대에는 주고 다른 세대에는 거두어들임으로써 인류나 세대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다. 온통 인간의 것을 신성한 것이라고 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며, 또한 상상의 영감을 일으키는 전통적인 신전을 통해 나오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식별하는데 실패가 없도록 하라.

155:6.3 (1731.1) 나는 너희가 거듭나기를, 영으로 태어나기를 권하였다. 나는 너희를 권위의 어두움과 전통이라는 무기력 상태에서 불러내어 인간 혼이 이루기 가능한 가장 위대한 발견—너희 자신에게로, 너희자신 안에서, 그리고 너희 자신의 하느님을 발견한다는 그리고 너희 각자의 개인적 체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사실로서 행한다는 최상의 체험으로 너희 자신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실현하는 초월적인 빛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전통의 권위로부터 하느님을 아는 체험으로; 그리하여 너희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물려받은 민족적 신앙으로부터 실재 체험에 의해 성취된

개인적 신앙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너희들은너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마음의 신학으로부터 영원한 자질로 너희 혼속에 세워 질 진정한 영의 종교로 진보하게 될 것이다.

155:6.4 (1731.2) 너희의 종교는 전통적 권위의 단순한 지적 믿음에서 하느님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과 아버지의 영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실재로 체험하는 것으로 바뀔 것이다. 마음의 종교는 너희를 희망도 없이 과거에 얽매이게 하지만, 영의 종교는 진보적인 계시를 이루고 있으며, 영적 이상(理想)들과 영원한 실체들 안에서 더 높고 고귀한 성과를 언제나 이루도록 한다.

155:6.5 (1731.3) 권위의 종교는 확정된 안전의 현재의 감정을 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잠깐의 만족을 위한 대가(代價)로 너희는 너희의 영적 자유와 종교적 해방감을 상실한다. 나의 아버지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대가로, 영적으로 모순되고, 성스럽지 못하고, 진실성이 없는 사실들을 믿는 것에 스스로를 강요하여 붙들어 매야만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낡아빠진 체계의

종교형태와 예식에 굴복함으로써 자비, 공의, 진리에 대한 너희들 자신의 감각이 유린되어야만 한다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영의 종교는 영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던지 진리를 따르도록 언제까지나 너희를 자유롭게 놓아둔다. 그리고 이 영이 아마도 다른 세대들은 듣기를 거부해왔던 무엇인가를 이 세대에게 나누어줄지도 모른다.-누가 심판할 수 있겠는가?

155:6.6 (1731.4) 굶주린 혼들을 어둡고 머나 먼 과거로 끌고 가 그 곳에 방치하는 거짓 종교 선생들에게 부끄러움이 있을 지어다! 또한 온갖 새로운 것이 발견될 때마다 섬뜩하게 놀라는 운명에 처해진 불행한 사람들, 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새로운 진리의 계시가 있을 때마다 찢찢매는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이다. “그의 마음이 하느님께 머문 자는 완전한 평화를 누릴 것이다”라고 말한 예언자는 권위 신학의 단순한 지적 신봉자가 아니었다. 이 진리를 알고 있던 인간은 하느님을 발견했었으며, 그는 단지 하느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았다.

155:6.7 (1731.5) 나는 너희들에게 항상 옛 예언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이스라엘의 영웅들을 찬양하는 실천 관행을

버리고, 대신에 지고자의 살아있는 예언자와 다가오는 왕국의 영적 영웅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바이다. 과거에 하느님을-알았던 영도자들을 명예롭게 받드는 것은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안에 어찌하여 너희는 인간 실존의 최극 체험—너희 자신에게 하느님을 찾아주고 너희 각자의 혼 안에서 그를 알게 되는 것—을 희생시켜야만 하는가?

155:6.8 (1732.1) 인류의 모든 종족은 인간 실존에 대한 저마다 각각의 정신적 관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마음의 종교에서는 이들 다양한 각 종족의 시각에 대하여 그것이 언제까지나 진실임을 저마다 이어가야만 한다. 권위의 종교는 결코 통일을 가져올 수 없다. 인간 합일과 필사자의 형제신분은 오로지 영의 종교가 주는 초(超)자질에 의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종족 간의 마음들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그러나 모든 인류는 똑같은 신성하고 영원한 영이 내재되어 있다. 모든 인간의 형제신분에 대한 희망은, 권위를 지닌 다양한 마음에서의 종교가, 통합하고 고귀하게 하는 영의 종교—개인적인 영적 체험의 종교—를 주입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희미해지게 될 때, 그리고 그렇게 되는 정도에 따라서 오직 실현될 수 있다.

155:6.9 (1732.2) 권위의 종교는 단지 사람들을 분열시키며 그들을 의도적으로 서로 반목시키게 할 뿐이지만, 영의 종교는 사람들을 점진적으로 함께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를 납득하고 공감하게 되도록 할 것이다. 권위의 종교는 사람들에게 믿음에서의 획일성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현상태로의 세상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영의 종교는 믿음의 다양성을 충분히 허락하면서 단지 체험의 합일—운명의 획일성—를 요구할 뿐이다. 영(靈)의 종교는 관점과 견해에서의 획일성이 아니라, 단지 통찰력의 획일성을 요구한다. 영의 종교는 지적 식견의 획일성이 아니라, 오직 영적 느낌의 합일만을 요구한다. 권위의 종교는 생명 없는 교리들로 정형화시키지만; 영의 종교는 사랑하는 봉사와 선행과 자비스러운 돌봄이라는 고상하게 만드는 행위들이 가져다주는 증가하는 기쁨과 해방으로 자란다.

155:6.10 (1732.3)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러한 전통에 얽매인 열매 없는 악한 때에 처해 있었다는 이유로 너희가

그들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 조상들은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하느님을 찾는 일에 자신들을 헌신했으며, 그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었기에 하느님을 많이 알았던 아담의 시대 이래로, 그들만큼 하느님을 찾아 낸 다른 민족은 없었다. 나의 아버지는, 모세 시대 이래로, 하느님을 찾기 위하여 그리고 하느님을 알기 위한 유구하고도 부단한 이스라엘의 투쟁과정을 놓치지 않고 주목해 왔다. 지친 여러 세대동안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애쓰고 땀 흘리며 신음하고 진통을 겪었고 그리고 오해받고 경멸당하는 민족의 슬픔을 체험하고 고통을 참아왔으며, 모든 것은 알맞게 그들이 하느님에 대한 진리의 발견에 더욱 가까이 온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와 비틀거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은 모세 이래로 아모스와 호세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온 세상에 보다 분명하고 진실된 영원한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선포하기위해 부름을 받은 아버지의 보다 큰 계시를 위한 길이 준비되었다.

155:6.11 (1732.4) 살아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려는 시도보다 더 만족스럽고 감동적인 모험은 단 한가지뿐임을 잊지

말하라. 그것은 신성한 뜻을 진정으로 행하고자 하는 최극 체험이다. 또한 하느님의 뜻은 이 세상의 어떠한 직업을 통해서라도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거룩하지 않은 직업도 있고 세속적인 직업도 있다. 그러나 영으로 인도된 자의 삶에서는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 된다; 그것은 곧, 진리에 복종되고 사랑으로 고귀해지며 자비에 지배되고 공정함—공의—으로 절제되어진 자의 삶이다. 나의 아버지와 내가 이 세상에 보낼 영은 진리의 영일뿐 아니라 이상적인 미(美)의 영이다.

155:6.12 (1732.5) 너희는 하느님의 말씀을 신학적 권위를 가진 옛날 기록에서만 찾으려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하느님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하느님의 말씀이 어떤 출처에서 나왔는지를 막론하고 그 말씀을 알아본다. 그 증여의 경로가 명백하게 인간이라고 해서 신성한 진리가 평가절하 되어져서는 안 된다. 너희 형제들 중의 대부분은 하느님에 대한 이론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그들은 하느님의 현존을 실현하는 데에 영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자주 너희들에게 진지한 어린아이의 태도를 갖는 것이 하늘의 왕국이 실현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가르쳤던 이유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정신적 미숙함이 아니라 오히려 쉽게-믿고 충분히-신뢰하는 어린아이들의 영적 단순성이다. 너희가 하느님에 대한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은, 너희가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힘이 점점 더 자라야만 한다는 것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155:6.13 (1733.1) 너희의 혼 속에서 일단 하느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너희는 곧 다른 사람들의 혼 속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막강한 우주의 모든 창조체와 창조물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실체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사려깊은 사색을 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의 혼에, 무슨 수로 아버지가 최극 충성과 신성한 이상의 하느님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기회가 있겠는가? 마음은 영적 본성이 머무는 자리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그 곳으로 나아가는 관문이다.

155:6.14 (1733.2)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느님을 찾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오류를 범하지 말도록 해라. 너희는 그러한 설득력 있는 증명을 의식적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하느님을-알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힘차게 실증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다:

155:6.15 (1733.3) 1. 너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하느님의 영의 열매들.

155:6.16 (1733.4) 2. 너희가 죽음 이후의 생존에 대한 모험에서, 영원의 하느님, 곧 너희가 시간 속에서 그의 현존을 미리-맛본, 그 영원의 하느님을 발견하는 소망의 추구에, 너의 모든 것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남김없이 내걸어왔다는, 바로 그러한 긍정적인 증거를 너희의 전 일생 계획이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

155:6.17 (1733.5) 이제, 오류를 범하지 말라, 나의 아버지는 가장 희미하게 깜박이는 신앙에 언제까지나 응답하실 것이다. 그는 물질적이고 미신적인 원시인들의 감정들을 알아보신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너무 약하여 권위 종교에 소극적인 찬성의 태도로서 지적으로 순응하는 것에 불과한 자의, 그러한 정직하지만 두려움에 찬 혼으로 자신에게 나아오려는, 그러한 모든 미약한 시도까지도, 아버지는 언제나 귀중히 여기고 격려한다. 그러나 어둠에서 빛으로 불려나온 너희들에게는 전심을 다해

믿는 것이 기대된다. 너희의 신앙은 몸, 마음 그리고 영의 통합된 태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155:6.18 (1733.6) 너희는 나의 사도들이다. 따라서 너희들에게는 종교가 영적 진보와 이상적인 모험에 따르는 모진 현실에 맞서는 것이 두려워 피신할 수 있는 신학적 피난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하느님께서 너희를 찾으셔서, 너희를 높였으며, 고귀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영성화(靈性化)시키셨다는 것, 그리고 그런 식으로 너희를 찾아 아들로 맞으신 하느님을 찾기 위한 영원한 모험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실제체험의 사실이 되어야 할 것이다.

155:6.19 (1733.7) 예수는 말씀을 완결하고 나자, 안드레를 불러 페니키아가 있는 서쪽을 가리키며 말씀하였다: "우리의 길을 가도록 하자..

제 156 편 티레와 시돈에서 체류

156:0.1 (1734.1) 6월 10일 금요일 오후, 예수와 그의 연관-동료들은 시돈 근처에 도착하였고, 거기에서 그들은 어느 부유한 여인의 집에 멈추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의 대중적 인기가 절정에 달했었을 당시, 벳세다 병원에 환자로

입원한 적이 있었다. 전도자들과 사도들은 바로 이웃에 있는 그녀의 친구들 집에 묵었고, 그들은 이 상쾌한 주변 분위기 가운데에서 안식일 동안 휴식을 취하였다. 그들은, 북부의 해안가 도시들을 방문하려고 준비하기 전까지, 거의 2주일 반을 시돈과 그 인근에서 보냈다.

156:0.2 (1734.2) 이 6월의 안식일은 엄청난 평온의 하나였다. 전도자들과 사도들은 모두 함께 그들이 시돈으로 오는 도중에 들었던 종교에 대한 주(主)의 강연들에 관한 자신들의 명상에 흠뻑 몰두되었다. 그들 모두는 그가 그들에게 말했었던 것의 어떤 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들 중의 아무도 그의 가르침의 중요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제 1 장. 시리아 여인

156:1.1 (1734.3) 주(主)가 묵었던 카루스카의 집 근처에 한 시리아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예수가 엄청난 치유자이자 선생이라는 소문을 많이 들어 왔었기에, 그녀는 이 안식일 오후에 그녀의 어린 딸을 데리고 왔다. 12살 가량의 이 아이는 발작과 여러 고통스런 현시활동을 특징으로 가진 극심한 신경 질환을 앓고 있었다.

156:1.2 (1734.4) 예수는 그의 연관-동료들에게, 자신이 휴식을 취하기를 원하니, 아무에게도 카루스카의 집에 있는 자신의 현존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였었다. 그들은 주(主)의 지시를 따랐으나, 카루스카의 하인은 그 시리아 여인인 노라나의 집에 가서 예수가 그녀의 여주인의 집에 묵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이 열망하는 여인에게 병든 딸을 예수께 데려가서 치료받으라고 재촉하였다. 이 어머니는 당연히, 자신의 아이가 귀신, 더러운 영에 붙잡혔다고 믿고 있었다.

156:1.3 (1734.5) 노라나가 그녀의 딸과 함께 도착했을 때, 알패오 쌍둥이는 통역을 통하여 주(主)가 쉬는 중이고 그리고 방해될 수 없음을 설명해주었다. 그러나 노라나는 아이와 함께 주(主)가 휴식을 완결할 때까지 바로 그 곳에 남아 있겠다고 대답하였다. 베드로 또한 그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였다. 베드로는 예수가 그 동안 많은 가르침과 치료를 한 후 매우 피곤해져서 페니키아에는 조용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으며 노라나는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베드로의 말에 대해 그녀는 단지 "당신의 주(主)를 보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가 우리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치유자가 내 딸을 바라보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만 대답하였다.

156:1.4 (1734.6) 그 다음에 도마가 그녀를 돌려보내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에만 부딪혔을 뿐이었다. 그녀가 도마에게 말하였다. “저는 당신의 주(主)가 내 아이를 괴롭히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갈릴리에서 있었던 그의 막강한 일들에 관하여 들어왔고,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인 당신들이 당신들의 주(主)의 도움이 필요해서 온 사람을 돌려보내려고 하다니, 이것이 어찌된 영문입니까?” 그녀의 그런 말에 도마도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156:1.5 (1735.1) 그 다음에 시몬 젤로떼가 노라나를 타이르려고 나섰다; “여인이여, 당신은 그리스어를 하는 이방인입니다. 주(主)가 은혜 받은 가족의 자녀에게 줄 의향으로 빵을 집어들고, 그리고 그것을 개들에게 던져주리라 당신이 기대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라나는 시몬의 일격에서 화를 내는 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단지 “그렇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말을

납득합니다.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저는 단지 하나의 개에 불과하지만, 당신의 주(主)에 관해서는, 저는 믿고있는 개입니다. 그분이 내 딸을 보도록 하겠다고 나는 결심하고 있으니, 왜냐하면 그분이 한 번 내 딸을 바라보시기만 해도, 그가 그녀를 고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선한 분이신, 당신조차도 아이들의 상에서 어쩌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는 특권을 개에게서 감히 빼앗으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56:1.6 (1735.2) 바로 이 때 그 어린 아이가 그들 모두 앞에서 심한 경련을 일으켰고, 그 어머니는 울부짖었다: “보십시오, 내 아이가 귀신에게 붙잡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의 처지가 당신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끌지 않는다 해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이방인들까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들어왔던 당신들의 주(主)에게는 이 모습이 호소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내 아이가 고쳐질 때까지 가지 않을 것입니다.”

156:1.7 (1735.3) 열려진 창문을 통해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예수가 이제 밖으로 나와 모두를 놀라게 하며 말하였다:

“아. 여자여, 네 신앙이 크다. 그렇게 크니 나는 네가 갈망하는 것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평화로움 안에서 네 길을 가라. 네 딸은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 그 소녀는 그 시각부터 회복되었다. 노라나와 아이가 떠나자, 예수는 그들에게 이 발생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그의 연관-동료들은 이러한 분부에 따랐으나, 어머니와 아이는 시돈은 물론 모든 변두리 지방까지 그 소녀의 병이 치유된 사실을 그치지 않고 선포했고,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예수는 며칠 안에 숙소를 옮기는 것이 상책임을 발견했다.

156:1.8 (1735.4) 이튿날 예수는 그의 사도들을 가르치면서 시리아 여인의 딸의 병 고침을 거론하며 말하였다: “항상 그래 왔었던 것이기는 하지만, 이제 너희가 너희 스스로 이방인들이 하늘의 왕국 복음의 가르침에서 구원받는 신앙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 지를 보았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만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기에 충분한 신앙을 보이는데 유념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왕국은 이방인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제 2 장. 시돈에서의 가르침

156:2.1 (1735.5) 시돈에 들어가면서 예수와 그의 일행은 다리를 하나 건넜는데,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들이 다리를 건너가면서, 예수가 말한 다른 여러 것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이 세상은 단지 하나의 다리에 불과할 뿐이다; 너희는 그것을 지나가도 좋지만, 그 위에 거처할 장소를 지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156:2.2 (1735.6) 24명의 제자들이 시돈에서 그들의 수고를 시작하자, 예수는 도시 북쪽에 위치한 어느 한 집, 주스타와 그녀의 어머니 버니서가 사는 집으로 가셨다. 예수는 매일 아침마다 주스타의 집에서 24명을 가르쳤고, 그들은 오후와 저녁에는 시돈으로 가서 가르치고 설교하였다.

156:2.3 (1735.7)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시돈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그들의 태도에 크게 기운을 얻었다. 그것은 그들의 짧은 체류기간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왕국으로 들어온 때문이었다. 페니키아에 머물렀던 약 6주간은 혼을 구원하는 일에서 많은 결실을 거두었던 기간이었다. 그러나 후대의 유대인 복음 저작자들은, 예수 자신의 민족에서의 그토록 큰 숫자가

그에 거슬러 적대하는 대열에 있던 바로 그 때에,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이들 이방인들에 의한 이러한 따듯한 수용이 있었다는 기록을 가볍게 지나치는 버릇이 있었다.

156:2.4 (1736.1) 여러 면에서 이들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충분히 예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많은 시리아-페니키아인들은 예수가 하느님 같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 역시 예수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위 이교도라 불리던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과 전체 우주의 법들이 한결같다는 주(主)의 가르침에 대해 훌륭한 납득을 성취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이 어떤 개인이나 인종이나 민족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우주 아버지와 관여해서는 그 어떤 편애주의도 없다는 것; 우주는 전적으로 그리고 언제까지나 법에-지속되고 어김없이 의존할 만하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 이방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려고 과감하게 나섰다. 모든 세대를 두루 내려오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이해하기를 두려워해왔다.

156:2.5 (1736.2) 예수는 그가 그의 적들과 맞설 용기가 부족해서 갈릴리에서 도망쳤던 것이 아니었음을 24명에게 분명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가 아직은 확립된 종교와 공개적인 충돌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순교자가 되기를 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주스타의 집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나의 진리의 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156:2.6 (1736.3) 시돈에 머무는 동안 예수의 가르침의 주제는 영적 진보였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이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들이 정의(正義)로움 속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죄와 악 속으로 후퇴하든지 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과거 안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반면에 왕국의 더 큰 실체들을 포용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훈계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복음 안에 있는 어린애신분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의 교제 안에서 그리고 믿는 자들의 동료관계 안에서 신성한 아들관계의 충분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투하라고 타일렀다.

156:2.7 (1736.4)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나의 제자들은 악을 행하는 것을 그쳐야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행하는 것도 배워야만 한다; 너희는 모든 의식적인 죄로부터 깨끗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다는 느낌을 품는 것조차도 거절해야만 한다. 만약 너희가 너희의 죄를 고백한다면, 그들은 용서되어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의 원인이 비어있는 그러한 양심을 유지해야만 한다.”

156:2.8 (1736.5) 예수는 이방인들이 나타낸 유머에서의 날카로운 감각을 크게 즐겼다. 시리아 여인 노라나가 주(主)의 가슴을 감동시키고 그의 자비심에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위대하고 끈기 있는 신앙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보인 유머에서의 감각이었다. 예수는 그의 민족- 유대인-이 유머에서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매우 애석해했다. 언젠가 그가 도마에게 말하였다. “나의 민족은 자신들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해서 유머에서의 깊은 이해가 거의 없는 것 같다. 바리새인들의 무거운 짐이 되는 종교는 유머에서의 감각을 지닌 민족 사이에서 결코 생겨날 수가 없다. 그들은 또한 일관성도 부족하다; 그들은 하루살이를 걸러 내고 낙타를 삼키고 있다.”

제 3 장. 해안을 거슬러 올라가며 여행함

156:3.1 (1736.6) 6월 28일, 화요일에, 예수와 그 일행은 시돈을 떠나 해안을 거슬러 올라가며 포르피리온과 헬두아로 갔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서 잘 받아들여졌고, 가르침과 설교의 이 주간 동안 많은 이들이 왕국에 추가되었다. 사도들은 포르피리온에서 설교하였고, 전도자들은 헬두아에서 가르쳤다. 24명이 그렇게 자신들의 일에 분주한 동안 예수는 사나흘 정도 그들을 떠나서 베이루트의 해안 도시를 방문하였는데, 그는 그 곳에서 지난해에 벳세다에 함께 있었던, 신자였던 말라크라는 시리아인을 방문하였다.

156:3.2 (1737.1) 7월 6일, 수요일에,예수의 일행 모두는 시돈으로 돌아와서 일요일 아침까지 주스타의 집에 머물렀다. 일요일 아침에 그들은 티레를 향해 떠나 사렙타의 길로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7월 11일, 월요일에 티레에 도착하였다. 이 무렵에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소위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이들 사이에서 일하는 데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실체 안에서 셈족에 기원을 둔 초기 가나안-사람의 후손들이었다. 이들 민족들은 모두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사도들과 전도자들에게는 복음을 들으려는 이들 이방인들의 열성과

지켜보는 것이, 그리고 그들의 다수가 믿으려고 기꺼이 준비가 되어 있음을 주목하는 것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었다.

제 4 장. 티레에서

^{156:4.1 (1737.2)} 7월 11일부터 24일까지 그들은 티레에서 가르쳤다. 사도들은 각각 전도자 한 명을 데리고 갔고, 이렇게 둘씩 티레의 온 구석과 그 인근 지역을 가르치고 설교하였다. 이 바쁜 항구도시의 여러 언어의 주민들은 그들의 말을 기쁘게 들었고, 많은 이들이 왕국의 밖으로 향한 동료관계에 들어가려고 세례를 받았다. 예수는 티레에서 남쪽 3-4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요셉이라는 유대인 신자의 집에 그의 본부를 설치하였다. 이곳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도시 국가 티레의 왕이었던 히람의 무덤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156:4.2 (1737.3)} 이 두 주간 동안, 날마다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작은 모임들을 수행하기 위해 알렉산더 항구의 길을 따라서 티레로 들어갔으며, 매일 밤 대부분의 그들은 도시의 남쪽, 요셉의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매일 신자들이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도시로부터

나와서, 그가 쉬고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 주(主)는 7월 20일 오후에 단 한번 티레에서 가르치셨는데, 그는 그때 온 인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관련하여,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한 아들의 사명에 관하여 가르쳤다. 이들 이방인들 사이에서, 왕국의 복음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이때를 맞아 멜카트 성전의 문이 그에게 개방되었다. 후년에, 한 그리스도교 교회가 이 옛 사원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세워졌음을 기록하는 것이 흥미롭다.

156:4.3 (1737.4) 티레와 시돈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고 세계적인 상업의 중심지가 되어 큰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만드는 데 기여했던 염료인, 티레의 자주색을 제조하던 염색공장의 많은 영도자들이 왕국을 믿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염색업의 자원인 바다 동물의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염료를 만드는 자들은 새로운 이들 갑각류의 서식처를 찾아 떠났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지구의 끝까지 갔는데, 그들과 함께 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람의 형제신분의 메시지—왕국의 복음—을 가지고 갔다.

제 5 장. 티레에서의 예수의 가르침

156:5.1 (1737.5)

이 수요일 오후에 가르치시던 중에, 예수는 따르는 무리들에게, 아래에 있는 검은 흙의 진흙과 거름 속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햇빛을 향해 순수하고 하얀 꽃을 피우는 흰 백합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려주었다. “마찬가지로”, 그가 말했다, “필사 사람은, 비록 그가 인간 본성에서의 동물적 토양에 그의 기원과 존재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신앙으로 자신의 영적 본성을 하늘의 진리인 햇빛 속으로 자라 올라가게 할 수 있으며 실재로 영의 고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156:5.2 (1738.1)

바로 이 설교를 하는 동안, 예수가 자신의 직업—목수—과 상관있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비유를 사용했다. “영적 자질에서의 고귀한 성격의 성장을 위하여 기초를 튼튼히 세우라”는 그의 교훈을 주시는 도중에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희는 영으로 태어나야만 한다. 너희가 동료들 사이에서 영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너희는 영의 가르침을 받아야만하고 영의 인도에 따라야만 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목수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그는, 그의 벌레 먹고 안으로 썩은 나무를 반듯이 만들고, 치수를 재고, 매끄럽게 다듬으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그

튼튼하지 못한 기둥에 모든 그의 수고를 증여하였는데, 시간과 폭풍의 강습을 견디도록 지으려는 건물의 기초로 사용해 보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다. 확대되고 고귀해지는 영적 본성, 그렇게 필사자 마음을 변환시키고 그리고는 다시-창조된 그 마음이 관계적-연합되어 불멸의 운명인 혼의 진화를 달성하는, 그것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을, 것처럼 적절하게 지탱하는 성격의 지적 그리고 도덕적 기초들이 있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하라. 너희의 영 본성—공동으로 창조된 혼—은 살아있는 성장이지만, 그러나 개별존재의 마음과 도덕은 그것으로부터 인간적 발달과 신성한 운명의 좀 더 높은 이들 현시활동들이 돌아나야 할 토양이다. 진화하는 혼의 그 토양은 인간적이고 물질적이지만, 이 마음과 영이 병합된 창조체의 운명은 영적이고 신성하다.”

156:5.3 (1738.2) 바로 이 날 저녁에 나다니엘이 예수께 물었다: “주(主)여, 어찌하여 저희들은 하느님이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아버지께 대한 당신의 계시에서 그가 결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나다니엘에게 대답하였다:

“초기 히브리 예언자들이 아주 희미하게 아버지를 본 것과는 달리, 이제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너희가 그를 알기 시작하고 있음이 보이고 있으니, 네가 그러한 질문을 묻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우리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발생한 거의 모든 일에서 얼마나 하느님을 보고 싶어 했는가를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모든 자연 현상에서 그리고 인간 체험의 모든 비상한 에피소드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찾았다. 그들은 선과 악, 양쪽을 모두 하느님과 연결지었다. 그들은 그가 모세의 가슴을 부드럽게 하였으며 파라오의 가슴을 경직되게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사람이, 선이건 악이건, 어떤 무엇을 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가지면, 그는 이러한 비상한 감성들을 '주님이 내게 말하기를, 이리저리하라' 했고, 또한 '이리로 저기로 가라' 하였다.'고 내세우면서 이유를 돌리려는 습관이 있었다. 이에 따라서 사람들은 너무 자주, 아주 맹렬하게, 유혹에 빠졌으므로, 우리의 선조들은 하느님이 시험하거나 벌을 주거나 혹은 더욱 강하게 하려고 그러한 쪽으로 그들을 이끈다고 믿는 것이 버릇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참으로, 이제 그 이상을 알고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모두, 너무나도 자주 그들 자신의

이기심의 충동 때문에, 그리고 동물적 본성의 자극 때문에, 유혹에 빠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너희가 이러한 길로 유혹될 때, 내가 너희에게 충고하건대, 너희는 한편으로는 그 유혹이 과연 무엇인가를 정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인지하고, 그러면서 너희는, 표현을 찾고 있는, 영, 마음 그리고 육체의 에너지를, 한층 더 높은 경로 안으로 그리고 더욱 이상적인 목표를 향하도록, 지적으로 방향을 다시 정하라. 이러한 길 안에서, 너희는 동물적 본성과 영적 본성간의 낭비적이고 약화시키는 이들 갈등을 거의 전부 피하면서 한편으로는, 필사자 사명활동을 들어 올리는 가장 높은 유형으로, 너희의 유혹을 변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156:5.5 (1738.4) “그러나 나는 단순히 인간 의지의 기세를 통해서 하나의 욕망을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또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유혹을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경고하고 싶다. 만일 너희가 더욱 떨어지고 더욱 낮은 본성의 유혹을 이겨내고 참으로 승리하고자 한다면, 너희는 너희 마음이 행실을 갈아 치려고 하는 곳, 곧 너희가 유혹으로 인지하는 더욱 낮고 그리고 불품없는 이상의 행실 습성을 갈아치울 열망을

일으키는 그러한 더 높고도 더 이상적인 행위의 형태가 실제로 그리고 참되게 실재적 관심으로 개발되고 그에 대해 사랑하도록 하는 장소, 그 영적 유리함이 있는 장소로 와야만 한다. 너희는 이러한 길 안에서, 필사자 욕망들에 대한 기만적인 억압으로 점점 증가되는 지나친 부담을 지기 보다는, 오히려 영적 변환을 통하여 해방될 것이다. 오래되고 그리고 열등한 것들은, 새로운 것 그리고 우월한 것에 대한 사랑 안에서 잊힐 것이다.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빛을 받은 자들의 가슴 속에서는 항상 아름다움이 추악함을 이겨내고 승리한다. 새롭고도 진지한 영적 애정의 내물아치는 에너지 안에는 막강한 힘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악에 지지 말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라.”

156:5.6 (1739.1) 밤이 늦도록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계속 질문을 하였고, 많은 답변들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현대적인 어법으로 다시 말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56:5.7 (1739.2) 기세 넘치는 야망, 지능적 판단 그리고 숙성된 지혜는 물질적 성공에서 필수적인 것들이다. 지도력은 본성적 능력, 사려 깊은 분별력, 의지력 그리고 결단력에

달려있다. 영적 운명은 신앙, 사랑, 그리고 진리에 대한
헌신—정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 하느님을 찾아내고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 전심을 다하는 갈망에 달려 있다.

156:5.8 (1739.3) 너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낙담에 빠지지 말라. 인간의 본성이 악을 향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선천적으로 죄 있음은 아니다.
너희의 유감스러운 어떤 체험들을 전부 잊으려는 것에
너희가 실패한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라. 시간 속에서
너희가 잊는 데에 실패한 오류들은 영원 속에서 잊혀질
것이다. 너희 운명의 길게-내다보는 관점, 즉 너희 생애의
우주 확장을 재빠르게 알아차림으로써, 너희의 혼에 지워
진 짐을 가볍게 해라.

156:5.9 (1739.4) 마음에서의 불완전이나 육체에서의 욕구로서
혼의 가치를 평가해보려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단 하나의
불운한 인간 에피소드를 기준 삼아서 혼을 심판하거나 그
운명을 평가하지 말라. 너의 영적 운명은 오로지 너의 영적
소망과 목적에 따라서 조건이 갖추어 진다.

156:5.10 (1739.5) 종교는 하느님을-알고 있는 사람의 진화하는
불멸(不滅)의 혼이 겪는 독점적인 영적 체험이지만,

그러나 도덕적 힘과 영적 에너지는 어려운 사회적 상황을 다루는 데에 그리고 복잡한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강력한 기세들이다. 이들 도덕적 그리고 영적 자질들은 모든 차원의 인간 삶을 더욱 부유하고 더욱 의미 넘치게 만든다.

156:5.11 (1739.6) 너희가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사랑하도록 배운다면, 너희는 웅홀하고 초라한 일생을 살도록 운명이 정해진다. 인간의 사랑은 참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신성한 사랑은, 모든 바로 그 만족이-필요한 곳을 찾으면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어떤 창조체의 본성에 사랑이 적을수록 사랑의 필요는 더욱 더 커지고, 신성한 사랑은 더욱 많이 그러한 필요를 만족시키려고 찾아 나선다. 사랑은 결코 자아-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아-증여되는 것일 수가 없다. 신성한 사랑은 자아-억제될 수가 없다; 그것은 사심-없이 증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56:5.12 (1739.7) 왕국을 믿는 자들은 정의(正義)가 분명히 승리한다는 맹목적 신앙, 모든-혼을 다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왕국 건축자들은 영원한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믿는 이들은 경배 넘치는
교제로서 영을 다시 새롭게 하고 마음에 영감을 주고 혼을
새롭게 함으로써, 일생의 맹렬한 돌진으로부터 어떻게 한
걸음 비켜서는지—물질적 실존의 시달림에서 벗어나는
가—를 점점 더 배워야만 한다.

156:5.13 (1739.8) 하느님을-아는 개별존재는 불행 때문에 용기를
잃게 되거나 실망 때문에 좌절되지 않는다. 믿는 이들은
순전히 물질적 격변의 결과로서 생기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 영으로 사는 자들은 물질세계의 에피소드에
동요되지 않는다. 영원한 삶을 향하는 후보자는 필사자
삶에서 만나고 있는 모든 변천과 골칫거리에 대하여 어떤
활기 넘치고 그리고 건설적인 기술을 실습하는 자이다.
참된 믿는 자는 날마다, 그가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 더욱
쉽다는 것을 발견 한다.

156:5.14 (1740.1) 영적 삶은 진정한 자아-존중을 힘이 넘치게
증가시킨다. 그러나 자아-존중은 자아-찬미가 아니다.
자아-존중은 항상 자기 동료들에 대한 사랑과 봉사와 조화-
협동하는 것이다.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희

자신을 더 존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가 다른 하나에 대한 수용능력의 척도이다.

156:5.15 (1740.2)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진정한 신자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영원한 진리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는 것에 점점 더 능숙하게 된다. 너희는 너희가 어제보다 오늘, 인간성에 대하여 선(善)을 계시하는 일에 더 많은 방법을 가지느냐? 너희는 작년의 너희보다, 금년에 더 나은 정의(正義) 권고자가 되었느냐? 너희는 굶주린 혼들을 영적 왕국으로 이끄는 너희의 기법에서 점점 더 예술적으로 되어가고 있느냐?

156:5.16 (1740.3) 너희의 이상은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을 만큼 충분히 높게 설정되어 있는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너희의 관념이 너희가 필사 동료들과 관계적-연합을 이루면서 이 세상에서 기능하는 유익한 시민이 되도록 것처럼 실천적인가? 너희는 영적으로는 하늘의 시민이지만, 육체적으로는 아직 땅의 왕국의 시민이다. 물질적인 것들은 시저에게, 영적인 것들은 하느님께 돌리라.

156:5.17 (1740.4) 진화하는 혼의 영적 수용능력의 척도는 진리

안에 있는 너희의 신앙과 사람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다. 그러나 인간 성격의 강한 힘의 척도는 앙심을 품으려는 것에 저항하는 너희의 능력과, 그리고 깊은 슬픔과의 마주침에서 곱씹는 것을 견디는 너희의 능력이다. 좌절은 너희의 실제 자아를 정직하게 비춰볼 수 있는 참된 거울이다

156:5.18 (1740.5) 너희가 점점 나이 들고 그리고 왕국의

관련사들을 점점 더 체험함에 따라, 너희는 문제 있는 필사자들을 다루는 데에서 더욱 요령이 생기고, 완고한 연관-동료들과 살아가는 데서 점점 더 관용으로 대해지고 있는가? 요령은 사회의 지렛대에 받침이고, 관용은 위대한 혼을 가리키는 표식이다. 만일 이 같은 진귀하고 매력적인 성품들을 갖고 있다면, 너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오해들을 피하기 위한 너희의 값진 노력에서 좀 더 민첩하고 능숙하게 될 것이다. 것처럼 지혜로운 혼들은 감정조절의 부족으로 괴로워하는 사람,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품위 있게 늙어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들 모두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한 부분을 이루고 있을 많은 문제들을 피할 수 있다.

156:5.19 (1740.6) 진리를 설교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너희의 모든 노력에서 부정직함과 부당함을 피하라. 땀 흘리지 않고 인정받으려 추구하지 말고 마땅치 않은 동정을 구하지 말라. 사랑하라, 너희의 공적에 상관없이 신성한 근원과 인간 근원 양쪽 모두로부터 자유롭게 무상으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 답례로 그들을 자유롭게 무상으로 사랑하라. 그러나 다른 모든 명예와 과찬에 관련된 것에서는 정직하게 너희에게 속한 것만 추구하라.

156:5.20 (1740.7) 하느님을-의식하는 필사자는 구원을 확신한다; 그는 일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한 정직하며 한결같다. 그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용감하게 참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또한 불가피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불평하지 않는다.

156:5.21 (1740.8) 참된 신자는 좋은-행실을 하는데 그가 방해를 받았다고 해서 지치지 않는다. 역경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돋구며, 장애물은 대담해진 왕국 건축자의 노력에 대한 도전일 뿐이다.

156:5.22 (1740.9) 티레를 떠나기 전에 예수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

156:5.23 (1740.10) 갈릴리 해안 지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티레를 떠나기 전 날, 예수는 그의 연관-동료들을 불러 모으고, 12명의 전도자들에게는 자신과 12명의 사도들이 가기로 된 길과는 다른 경로를 통해 가라고 말하였다. 이곳에서 예수와 헤어진 후 전도자들은 다시는 그렇게 예수와 친밀하게 교제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제 6 장. 페니키아에서 돌아옴

156:6.1 (1741.1) 6월 24일, 일요일 정오경에, 예수와 12명의 사도들은 티레의 남쪽에 있는 요셉의 집을 떠나 해안을 따라 내려와 프톨레마이스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그들은 하루 동안 머물면서 그곳의 신자들에게 평안의 말을 전하였다. 베드로가 7월 25일 저녁에 그들에게 설교하였다.

156:6.2 (1741.2) 화요일에 그들은 프톨레마이스를 떠나 티베리아스 도로를 거쳐 내륙의 동쪽으로 가면서 요타파타로 향하였다. 수요일에 요타파타에 도착하여 그곳의 신자들에게 왕국의 일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쳤다. 목요일에 요타파타를 떠나 나사렛-레바논 산을 잇는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가서 라마를 거쳐 스블론이라는

마을로 향하였다. 금요일에 라마에서 집회를 열고 안식일을 그 곳에서 보냈다. 스블론에 도착한 것은 31일 일요일이었으며, 그 곳에서 그 날 저녁 집회를 열고 다음 날 아침 떠났다.

156:6.3 (1741.3) 그들은 스블론을 떠나 케자리아 근처 막달라-시돈 도로와 만나는 곳을 넘어 여행하였고, 그 다음에 그들은 가버나움 남쪽인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 게네사렛으로 길을 향하였고, 그 곳에서 그들은 다윗 세베대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으며, 거기에서 그들은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취해야 할 다음 활동에 대해 상의할 작정이었다.

156:6.4 (1741.4) 다윗과의 짧은 회의에서 그들은 많은 영도자들이 게레사 근처의 호수 반대편에 모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바로 그 날 밤에 작은 배를 타고 그들은 호수를 건너갔다. 하루 동안 그들은 언덕에서 조용히 쉬었으며, 다음 날에는 주(主)가 언젠가 5,000명을 먹인 적이 있었던 근처의 공원으로 갔다. 이곳에서 3일간 쉬면서 그들은 매일 집회를 열었는데, 약 50명의 남자와 여자들이

참석하였고, 이들은 가버나움과 그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때 많았던 신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었다.

156:6.5 (1741.5) 예수가 가버나움과 갈릴리를 떠나 페니키아에 머무는 동안 그의 적들은 저들 모든 운동이 와해되었으며, 예수가 서둘러 떠난 것은 너무 소스라치게 겁을 먹었기 때문이므로, 다시는 자신들을 괴롭히러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의 가르침에 대한 모든 적극적인 반대가 거의 가라앉았다. 신자들은 다시 한 번 공개적인 모임을 개최하기 시작하였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이제 막 거치며 지나갔던 큰 시험을 통하여, 단련받은 그리고 참된 생존자들의 점진적이지만 효과적인 단합이 발생하고 있었다.

156:6.6 (1741.6) 헤롯의 형제 빌립은 예수를 반신반의하며 믿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는 주(主)가 자유롭게 살면서 일해도 좋다는 전갈을 보냈다.

156:6.7 (1741.7)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수와 그의 일행의 가르침을 금한다는 명령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었다. 논쟁의 대상으로서의 예수가 사라지자마자, 전 유대인들 사이에서 반응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영도자들에 대한 공통적인 분개심이었다. 회당의 많은 통치자들은 회당을 아브너와 그의 연관-동료들에게 은밀히 개방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선생들은 요한의 추종자이며 예수의 제자가 아라고 주장하였다.

156:6.8 (1741.8) 헤롯 안티파스조차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예수가 호수 반대편에 있는 그의 형제 빌립의 관할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알자, 예수께 전갈을 보냈다. 헤롯은 자신이 갈릴리에서 그에 대한 체포영장에 서명을 하긴 하였지만 페레아에서의 체포는 위임하지 않았기에 예수가 갈릴리 외부에 머물고 있는 한, 그로서는 아무런 방해도 하지 않겠다고 전하였다. 그는 또한 같은 내용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전달하였다.

156:6.9 (1742.1) 이상이 서기 29년 8월초까지의 상황이었다. 이때는 주(主)가 페니키아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돌아와 이 세상 사명에서의 이 마지막이자 사건 많은 1년 동안에, 흠어지고 시험받고 지친 그의 무리들을 재조직하기 시작한 때였다.

156:6.10 (1742.2) 주(主)와 그의 연관-동료들이 새로운 종교,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내재하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영의 종교를 선포하기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 싸움의 논점이 분명하게 그려졌다.

제 157 편 케자리아-빌립보에서

157:0.1 (1743.1) 예수는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케자리아-빌립보 근방에서 짧은 체류를 하기에 앞서, 8월 7일 일요일에 다윗의 메신저들을 통하여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다. 이 방문은 배를 만드는 세베대의 목공소에서 발생하기로 사전에 준비가 되었다. 다윗 세베대는 예수의 동생인 유다와 나사렛의 모든 식구—마리아와 예수의 모든 형제, 자매들—를 데려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예수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안드레와 베드로를 데리고 그 곳으로 가셨다. 마리아와 형제들은 이 약속을 꼭 지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우연히도 예수가 빌립의 관할 지역인 호수 건너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근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리아의 집으로 가기로 작정하였다. 마리아는 예루살렘의 밀정들이 도착하자 매우 불안하게 되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은 예수가 가족들을 방문하기로 되어있음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의 집에 머물면서 그들의 지원부대를 청해 놓고 예수가 도착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물론 이 같은 사태는 가족들의 누구도 예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다와 롯은 바리새인들의 감시를 피해 예수께 전갈을 보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157:0.2 (1743.2) 오후 일찍 다윗의 메신저들이 예수께 바리새인들이 그의 어머니 집문 앞 층계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고, 따라서 예수는 가족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포기하였다. 이래서 다시 한 번 예수와 그의 이 세상 가족들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없이 서로 만나지 못하였다.

제 1 장. 성전 세금 징수원

157:1.1 (1743.3) 예수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배 목공소가 가까이에 있는 호숫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를 알아본 한 성전 세금징수원이 그들에게 와서 한 쪽으로 베드로를 불러 말하였다: "너의 주(主)는 성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냐?” 베드로는 적들의 종교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일에 예수도 공헌하라는 그의 제시를 듣고 분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세금징수원의 얼굴에 나타난 묘한 표정을 보자, 그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성전 봉사예배를 지원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지불하는 반 세겔을 납부하기를 거절하였다는 구실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목적임을 정확하게 추측했다. 따라서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물론 주(主)는 성전 세금을 내신다. 문 옆에서 기다리면 내가 곧 세금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157:1.2 (1743.4)} 그러나 베드로는 너무 경솔하게 말하였다. 그들의 자금은 유다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호수 건너편에 있었다. 베드로, 안드레, 예수 중에는 아무에게도 돈이 없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찾고 있는 것을 알면서 돈을 가지러 벳세다로 쉽게 갈 수도 없었다. 베드로가 예수께 세금 징수원에게 자신이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말하자 예수가 말씀하였다: “네가 약속을 하였다면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겠느냐? 네 말을 지키기 위해 다시 어부 일을 하겠느냐? 베드로야,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 태도에 대해 아무런 흠도 잡히지 않도록 하자. 우리가 여기서 기다릴 동안, 네가 배를 타고 나가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저쪽에 있는 시장에서 고기를 판 후에 그 돈으로 우리 세 명 몫의 세금을 그 징수원에게 주어라.”

157:1.3 (1744.1) 가까이에 있던 다윗의 비밀 메신저가 이 모든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해변 가까이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친구에게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였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갈 준비를 했을 때, 다윗의 메신저와 그의 어부 친구는 고기가 가득 찬 몇 개의 큰 바구니를 그에게 주었다. 그들은 그를 도와 근처에 있는 상인에게 가져다 팔았다. 다윗의 메신저가 좀 더 보태어서 세 명에 해당되는 성전 세를 납부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준비하였다. 세금징수원은 예수의 일행이 한동안 갈릴리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늦게 납부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그 세금을 받았다.

157:1.4 (1744.2) 베드로가 입에 돈 한 세겔을 물고 있는 고기를 잡았다는 기록은 이상하지 않다. 그 당시에는 고기의 입에서 돈을 발견하였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었다;

기적에 가까운 이 같은 이야기들은 흔한 것들이었다. 베드로가 그들을 떠나 배가 있는 곳으로 갔을 때 예수가 반농담조로 말씀하였다: “왕의 아들들이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 이상하구나; 대개 국가의 유지를 위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타인들인데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위정자들에게 어떠한 장애물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가라! 아마도 네가 입에 돈을 물고 있는 고기를 잡을는지도 모르겠다.” 예수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뒤에, 베드로가 얼마 있지 않아 성전 세금을 가지고 나타났다으므로 후에 이 에피소드가 마태복음의 저자에 의해 기적으로 확대되어 기록된 것은 놀랄 일이 전혀 아니다.

157:1.5 (1744.3) 예수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거의 해가 질 때까지 해변에서 기다리셨다. 메신저들은 아직도 마리아의 집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다; 날이 어두워지자 이 세 사람은 배에 올라 갈릴리해의 동쪽 해안을 향해 천천히 배를 저었다.

제 2 장. 벳세다-줄리아스에서

8월 8일 월요일에 예수와 12명의 사도들이 벳세다-줄리아스 가까이에 있는 마가단 공원에 머물고 있을 때, 100명 이상의 신자들, 전도자들, 여자 전도자들, 그리고 왕국의 건설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집회를 위해 가버나움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예수가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많은 바리새인들도 또한 이곳에 왔다. 이 무렵 일부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연합하여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애썼다. 신자들과의 사적(私的) 집회를 갖기 전에 예수는 바리새인들도 참석한 대중 집회를 가졌다. 바리새인들은 주(主)께 야유를 퍼붓거나 모임을 방해하려고 애썼다. 방해자들의 영도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에게 당신이 가르칠 권한이 있다는 표적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표적이 나타난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줄 알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저녁이 되었을 때, 하늘이 붉으면 너희가 날이 좋겠다하고; 아침이 되었을 때, 하늘이 붉고 흐리면 너희가 날이 꺾겠다고 한다.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면, 비가 오겠다 하고; 남쪽으로부터 바람이 불면, 너희는 타는 듯한 더위가 오겠다고 한다. 너희가 하늘의 모양은 식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들은 그렇게 철저하게도 식별하지 못할 수 있느냐?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표적이 주어졌으나 악한-마음과 위선적인 세대에게는 아무 표적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157:2.2 (1745.1)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고 물러가서 그의 추종자들과 가질 저녁 집회준비를 하였다. 이날의 회의에서는 예수와 12사도들이 제안 받은 케자리아-빌립보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자마자 데카폴리스의 모든 도시들과 마을들에 걸쳐 연합된 임무를 수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주(主)는 데카폴리스 임무에 대한 계획에 참여하였는데, 일행들을 해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많은 학문의 그들의 모습과 그리고 종교의 형식에 대한 그들의 깊은 충성심에 속지 마라. 오직 살아있는 진리의 영과 진정한 종교의 힘에만 관심을 가져라.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죽은 종교의 그 두려움이 아니라 왕국의 영적 실체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너희의 신앙이다. 편견으로 인해 눈이 멀거나 두려움으로 몸이 마비되도록 너희자신을 버려두지 말라. 전통 존경을 용납하여, 그렇게 너희가 납득한 것을 왜곡시켜서 너희의

눈이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전통을
숭배하는 것은 용납하지 말라. 단지 평화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진정한 종교의 목적이 아니며, 오히려 진보를 시키는
것이 그것의 목적이다. 너희가 영원한 실체들의 이상인,
진리와 전심을 다한 사랑에 빠지지 않는 한, 너희의
가슴속에 어떠한 평화나 마음의 진보는 있을 수 없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영원의 정의(正義)로운 실체에 반하는
시간의 죄 많은 쾌락이—너희 앞에 놓여 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신앙과 희망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의심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어야만 할 것이다. 너희 혼
속에서 동료들을 위한 봉사의 감정이 생겨나면, 그것들을
억누르지 말라; 너희 가슴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감정이
솟아오르면, 그러한 애정의 충동을 네 동료들의 실제
필요에 대한 지적 사명활동으로서 표현해라.”

제 3 장. 베드로의 고백

157:3.1 (1745.2) 화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와 12명의 사도들은
마가단 공원을 떠나 영주(領主) 빌립의 관할 구역의 수도인
케자리아-빌립보를 향해 떠났다. 케자리아-빌립보는 매우
아름다운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은 요단강이
지하의 동굴에서 솟아나오는 아름다운 언덕 사이의

아름다운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다.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의 정상에 한 눈에 들어오고 언덕 위에서 남쪽으로는 요단강 상류와 갈릴리 바다의 장엄한 모습이 보였다.

157:3.2 (1745.3) 예수는 왕국 관련사들을 초기에 체험하면서 헤르몬 산에 가보신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의 관련사들의 마지막 신(新)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그는 시련과 승리의 이 산에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셨다. 그는 이곳에서 사도들이 다가올 고된 시기를 대비해 자신들의 책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앞으로 새로운 힘을 성취하게 되기를 바라셨다. 그들이 길을 따라 걷다가 메롬 샘물 근처를 지날 때쯤, 사도들은 자기들끼리 최근에 페니키아와 그 밖의 곳에서 겪었던 체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설교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그들의 주(主)를 여기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157:3.3 (1745.4) 그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멈추었을 때 예수는 갑자기 12명의 사도들에게 그 전에는 한번도 묻지 않았던 그 자신에 관한 질문을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질문을 하였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57:3.4 (1746.1) 예수는 이 신도들에게 여러 달에 걸쳐 하늘의 왕국의 본질과 성격을 가르치셨으며, 이제 그는 자신의 본성과 하늘의 왕국과의 그의 개인적 관계에 대해 사도들에게 좀 더 가르쳐야 할 시기가 왔음을 잘 알고 계셨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뽕나무 아래에 자리 잡게 되자, 주(主)는 선택된 사도들과의 그의 오랜 관계적-연합 속에서 가장 중요한 회합의 하나를 가지려고 준비를 마치셨다.

157:3.5 (1746.2) 사도들중의 반 이상이 예수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예언자나 혹은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의 적들조차도 그가 마귀들의 영주와 동맹을 맺고 있다는 고발로 그의 힘을 설명하면서, 그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사도들은 또한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한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의 일부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다 살아 난 세례자 요한이라고 믿는다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많은 경우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와 비교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보고를 다 듣고 난 예수는 일어서서 주변에 반원(半圓)을 그리고 앉아있는 제자들을 내려다보시면서 그의 손으로 쓸어버리는 손짓으로 그들을 가리키며 깜짝 놀라게 강조하며 물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잠깐 동안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로부터 눈을 떼지 않았다; 그 때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 외쳤다: “당신은 해방자,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앉아 있던 11명의 나머지 사도들도 베드로가 그들을 대신해서 말하였다는 동의의 표시로 모두 일어섰다.

^{157:3.6 (1746.3)} 예수는 그들에게 다시 앉으라고 지시하였고 자신은 여전히 그들 앞에 선 채로 말씀하였다: “이것은 나의 아버지에 의하여 너희에게 드러내졌다. 너희가 이제 나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만 할 때가 온 것이다. 하지만 당분간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기 바란다. 자, 이제 길을 떠나자.”

^{157:3.7 (1746.4)} 그렇게 해서 그들은 케자리아-빌립보로 가는 여행을 다시 계속하였으며 그날 저녁 늦게 도착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셀수스의 집에 머물렀다. 사도들은 그 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삶과 왕국의 사업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는 듯하였다.

제 4 장. 왕국에 관한 가르침

157:4.1 (1746.5) 요한으로부터 예수가 세례를 받았던 일과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 이래로 사도들은 여러 번의 경우에 예수를 메시아로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잠깐 동안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던 해방자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그러나 그 같은 희망이 그들의 가슴속에 생길 틈을 주지 않고 예수는 그들의 기대를 깨는 말씀을 하고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심으로써 그 희망을 산산조각 내셨다. 그들은 오랫동안 혼돈상태에 있어 왔는데, 이는 아직도 그들이 마음속에 간직했던 기대되는 메시아의 개념과, 그들이 가슴속에 지녀온 이 비상한 사람과의 비상한 관계적-연합에서의 체험 사이에 있는 갈등 때문이었다.

157:4.2 (1746.6) 수요일 늦은 오전에 사도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셀수스의 정원에 모였다. 지난 밤 내내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일어난 후 계속, 시몬 베드로와 시몬 젤로떼는 주(主)가 단순한 메시아로서 뿐 만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느님의 신성한 아들로 전심을 다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그들 모두가 오도록 그들 형제들에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다. 이 두 시몬은 예수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 동의를 보았으며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들도 그들의 생각과 같아지도록 만들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 안드레가 사도들의 일을 총괄하고 있었던 한편, 그의 동생 시몬 베드로가 다수의 동의를 받고 점점 더 12명의 대변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157:4.3 (1747.1) 정오 무렵에 예수가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모두 정원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엄숙한 모습으로 주(主)께서 그들에게로 다가오시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수는 그 친근하고 형제우애의 미소로써 그 긴장을 완화시키셨다. 그 미소는 추종자들이 그들 자신들을, 또는 그들 자신들에게 관련된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 나타내 보이는 그의 특징이었다. 그는 명령하는 손짓으로 그들이 앉아있어야 함을 지시하였다. 12명의 사도들은 주(主)께서 그들에게 나오실 때 다시는 일어서서 인사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그런

외형적인 존중의 표시를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157:4.4 (1747.2)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다가 올 데카폴리스 여행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을 때, 예수가 갑자기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시며 말씀하였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정체성에 관한 시몬 베드로의 선언에 동의한 지 만 하루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너희의 그 결정에 변함이 없는지 알고 싶다.” 이 말을 듣자마자 12명의 제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베드로가 예수 앞으로 몇 걸음 나와 말하였다: “예, 주(主)여,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다.

157:4.5 (1747.3) 여전히 서신 채로, 예수가 12명에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대사들이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너희가 단지 인간의 지식으로부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은 나의 아버지의 영이 너희의 아주 깊숙한 혼에 드러내 보여 주신 것이다. 따라서 너희가 이 고백을 너희 안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의 영의 통찰력으로 할 때에는, 나는 이 기초 위에 하늘의 왕국의

형제신분을 이룩할 것임을 선언하도록 이끌려진다. 이 영적 실체의 반석(磐石) 위에, 나는 내 아버지 왕국의 영원한 실체들 안에 영적 동료관계의 살아있는 성전을 세울 것이다. 모든 악한 세력과 죄의 무리들은 신성한 영의 이 인간들의 형제우애관계에 대항하여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영은 언제나 이러한 영 동료관계의 결속에 들어가려는 모든 이들의 신성한 안내자와 조연자가 되실 것이다. 너희와 너희의 후계자들에게 내가 이제 밖으로 향하는 왕국 열쇠들—현세적 일들에 대한 권한들— 왕국의 동료로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적-연합에서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을 넘겨주겠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당분간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명령하였다.

157:4.6 (1747.4) 예수는 자기 사도들의 충성심과 고결한-순수성에 대해 신앙을 갖기 시작하였다. 주(主)는 자신이 선택한 대표자들이 최근에 겪었던 일들을 감당할 신앙이라면, 분명히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시련을 견딜 수 있을 것이며 모든 희망이 깨져버린 중에서도 새로운 섭리시대라는 새 빛으로 솟아나고 나아갈 수 있으며 결국 어둠 속에

묻혀있는 세상을 깨우치기 위해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 날부터 예수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사도들의 신앙을 신뢰하실 수 있었다.

157:4.7 (1747.5) 그 날 이후로 예수는 자신의 신성한 아들관계의 기초 위에 살아있는 성전을 세우셨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느님의 아들들임을 자아-의식하게 된 사람들은 영들의 영원한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에 대한 영광과 명예를 세우고 있는 아들관계에서의 이 살아있는 성전을 이루는 인간 돌들이다.

157:4.8 (1747.6) 예수는 이같이 말씀하고 12명에게 그들끼리 언덕으로 가서 저녁식사 시간 전까지 지혜와 힘과 영적 지침들을 구하라고 지도하였다. 제자들은 주(主)께서 시키신 대로 따랐다.

제 5 장. 새로운 개념

157:5.1 (1748.1) 베드로의 고백이 갖는 새롭고 뚜렷한 특징은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 의심할 수 없는 그의 신성을 분명히 인식한 것이었다. 예수의 세례와 가나의 결혼식 사건 이후 사도들은 메시아로서 그를 다양하게 생각했으나, 그가 신성하여야 한다는 것은 민족의

해방자에 대한 유대인 개념의 일 부분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신성으로부터 솟아 나오리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는 생각하였지만, 그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두 번째 고백에서는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느님의 아들이었다는 고귀한 사실, 병합된 본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예수가 하늘의 왕국을 세우리라고 선언한 것은 인간 본성과 신성한 본성의 연합이라는 이 같은 위대한 진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157:5.2 (1748.2) 예수는 이 세상에서 일생을 살면서 사람의 아들이자 자신의 사업을 완수하려고 하였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를 자신들이 기다려 온 메시아로 생각하고 싶어 하였다. 예수는 결코 자신이 유대인들의 메시아적 기대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고 부분적으로 그들의 기대에 그를 맞추어 가면서 그들의 메시아 관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 같은 계획의 수행은 거의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 따라서 그는 대담하게 세 번째 계획을 펼치기로 결정하였다. 그 계획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성을 선언하고 베드로가 한 고백의

진실성을 인정하며 12명에게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직접 선언하는 것이었다.

157:5.3 (1748.3) 3년 동안 예수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라고 주장해 왔었고,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사도들은 그가 기다려 온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점점 더 주장해 왔다. 이제 그는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밝히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병합된 본성의 개념위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더 이상 확신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이제 그는 대담하게 그 자신의 본성을 밝히셨으며, 그러고 나서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을 무시하였다.

제 6 장. 다음 날 오후

157:6.1 (1748.4) 예수와 사도들은 다음 날 메신저들이 다윗 세베대로부터 기금을 가져오길 기다리며 하루를 더 머물렀다. 예수의 대중 집단과의 인기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수입도 큰 감소가 발생하였다. 그들이 케자리아-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재정은 텅 비어있었다. 마태는 그런 상황 안에 예수와 그의 형제들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과거에 그렇게 여러 번 그가 했었던 것처럼 유다에게 건네 줄 자기 소유의 기금이 아무 준비된 것이 없었다. 그러나 다윗 세베대가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여 그에 따라 메신저들에게 지시를 해 놓았다. 그들에게 그들이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방을 통과하는 동안에 유랑하는 사도들과 그들의 주(主)에게 전해 줄 돈을 걷는 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그 날 저녁 무렵에 이 메신저들은 예수의 일행이 데카폴리스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쓰고도 남은 충분한 기금을 가지고 벳세다로부터 도착하였다. 그 때까지라면 가버나움에 있는 자신의 마지막 땅이 처분되어 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마태는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 기금을 익명으로 유다에게 전달할 계획이었다.

157:6.2 (1749.1)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누구도 예수의 신성에 적절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그들은 이것이 이 세상에서 그들 주(主)의 생애 안에서의 새로운 섭리시대의 시작이라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이때가 선생-치유자가 새롭게 이해된 메시아—하느님의 아들-가 되어 가고 있는 시기였다. 이때 이후로 주(主)의 메시지에는 한 가지 새로운 면이 나타났다. 이때로부터 그의 하나의 삶의

이상은 아버지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으며, 그의 가르침에서의 하나의 관념은 그의 우주에 최극 지혜의 개인화구현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오직 그것을 사는 것으로만 이해되어 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생명을 가지며 그것을 더 풍요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다.

157:6.3 (1749.2) 이제 예수는 육신을 입은 그의 인간 일생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첫 번째 단계는 유년기로, 이 시기에 그는 인간 존재로서의 자신의 기원, 본성, 운명에 관해 단지 희미하게만 알고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청년과 점점 전진하는 성인신분에서의 증가하는 자아-의식적 시기로,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신성한 본성과 인간의 사명에 관해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예수의 세례와 연관되어 발생한 계시들과 체험들로서 끝이 났다. 이 세상에서의 예수의 일생 중 세 번째 단계는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선생이자 치유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던 시기를 거쳐 케자리아-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중요한 고백이 있었던 시기까지이다. 이 세 번째시기에 그의 사도들과 측근의 추종자들은 그를 사람의 아들로 알았으며 메시아로

여겼다. 예수의 이 세상에서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시기는 이곳 케자리아-빌립보에서 시작되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까지를 포옹한다. 그의 사명활동에서 이 단계는 그의 신성을 인정한 것으로 특징 지워지고, 그리고 육신으로서의 그의 마지막 해의 수고를 포옹한다. 네 번째 시기동안 대부분의 추종자들은 여전히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반면, 사도들에게는 그가 하느님의 아들로 알려지게 되었다. 베드로의 고백은 유란시아에서, 그리고 전체 우주를 위한, 한 증여 아들로서의 최극 사명의 진리를 더욱 완벽하게 실현하는 새로운 시기가 시작됨을, 그리고 그 같은 사실을, 비록 희미하게나마, 그의 선택된 대사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지목했다.

157:6.4 (1749.3) 그렇게 예수는 자신의 종교적 가르침을 일생을 살아감으로 모범을 보였는데, 그것은 살아가면서 진보하는 기법에 의한 영적 본성의 성장이었다. 그는, 후세의 추종자들과는 달리, 혼과 육체의 끊임없는 투쟁을 강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은 양쪽 모두에게 쉽게 승리를 거두며 이러한 지적인 것과 본능적인 싸움의 유익한 화해를 가져오는데 효과적이라고 가르치셨다.

157:6.5 (1749.4) 이 시점으로부터 모든 예수의 가르침에는 한 가지의 새로운 의의(意義)가 첨가되었다. 케자리아-빌립보 이전에는 예수는 통달한 선생의 자격으로 왕국 복음을 제시하였다. 케자리아-빌립보 후에 그는 단순한 선생으로서만이 아니라 영적 왕국의 중심이자 둘레이신 영원한 아버지의 신성한 대리인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가 이 모든 일을 사람의 아들, 한 인간으로서 행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157:6.6 (1749.5) 예수는 선생으로서, 그 후엔 선생-치유자로서, 추종자들을 영적 왕국으로 이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그들은 그렇게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는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사명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적 기대를 채워줄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셨다. 옛 선지자들이 묘사한 메시아의 모습은 결코 그가 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사람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왕국을 세울 길을 모색하였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그러한 모험에 그를 따라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시면서, 예수는 부분적으로 신자들에게 맞추어 가기로 걱정하였으며, 그렇게

해가면서 공개적으로 하느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하였다.

157:6.7 (1750.1) 따라서 예수가 이 날 정원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였을 때 사도들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들었던 것이다. 그들에게조차도 예수의 어떤 말들은 낯설게 들렸다. 다른 놀라운 발표들 중에 다음과 같은 것들에 그들은 귀 기울였다.

157:6.8 (1750.2) “이 시간 이후로부터 누구든지 우리와 함께 동료관계를 가지려면 아들관계의 의무를 담당한 후에 나를 따르도록 해라. 내가 너희를 떠났을 때 이 세상이 너희의 주(主)를 대했던 것보다 너희들에게 더 잘 대해 주리라고 기대하지 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최극 희생이 되려는 너희의 기꺼움으로 이 애정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157:6.9 (1750.3)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어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온 것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선물로서 자기 생명을 증여하려고 온 것이다.

내가 선언하겠는데,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157:6.10 (1750.4)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들 외에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그러나 아들이 들려 올릴 때 그는 모든 사람들을 그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는 것이며, 아들의 이 병합된 본성의 진리를 믿는 자마다 세월의-불변을 사는 것 이상의 생명을 자질로서 부여받게 될 것이다.”

157:6.11 (1750.5)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직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너희에게는 이 같은 사실은 드러내어졌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신비들에 관하여 너희들에게 대담하게 말하는 것이다. 비록 내가 너희들 앞에 물리적 현존으로 서 있기는 해도, 나는 아버지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왔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으로 나왔다. 그리고 너희에게 선언하겠는데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일로 돌아가야만 한다.”

157:6.12 (1750.6)

“사람의 아들이 너희의 조상이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너희에게 하는 내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 선언들의 진리를 너희의 신앙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느냐?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에 관한 진리를 너희가 믿을 수 있느냐?”

157:6.13 (1750.7)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겠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모든 일에서 나와 함께 행하며, 내 사명에서 결코 나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때,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157:6.14 (1750.8)

“그리고 나는 너희를 따로 세워 나와 함께 있도록 해 왔으며 그리고 이제 잠시 동안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내가 너희에게 깨우쳐온 그 일생; 인간의 가슴 안에 내 아버지의 왕국을 세우는 것, 이 복음을 믿는 모든 혼들의 살아가는 교제인 나의 동료관계를 이룩하는 것이라는

신앙의-모험인, 그 삶의 영광을 이해하고 그것의 웅장함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157:6.15 (1750.9) 사도들은 이 대답하고 깜짝 놀랄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으며, 모두들 아연해졌다. 이어서 그들은
소규모로 분산되어 주(主)의 말을 토론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들은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의 충분한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제 7 장. 안드레의 회의(會議)

157:7.1 (1750.10) 그 날 저녁 안드레가 각각의 형제들과
개인적이고 탐구하는 회의를 가졌다. 그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과 유익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안드레는 다른 연관-동료들과 가졌던
것 같은 친밀한 관계를 유다와는 유지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그는 유다가 사도대원의 우두머리인 자신에게 그
자신과 관련하여 한번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안드레는
유다의 태도가 너무 염려가 되어서, 그날 밤늦게 다른
사도들이 모두 잠든 후에, 그는 주(主)에게 가서 자신이

근심하는 이유를 털어놓았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안드레야, 네가 이 문제로 나를 찾아오기를 잘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아무 것도
없구나. 단지 계속하여 이 사도를 전력을 다하여
신뢰하거라. 그리고 너의 형제들에게는 나와 한 이야기를
전하지 말라.”

^{157:7.2 (1751.1)} 이상의 말이 안드레가 예수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전부였다. 유대 지방 출신의 이 형제와 갈릴리 출신의
형제들 사이에는 항상 이상한 감정이 있어 왔다. 유다는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으며, 몇 번의 경우에서
주(主)께 들은 책망으로 심하게 상처를 받았고, 예수가
왕이 되기를 거부하였을 때 실망하였으며, 예수가
바리새인들로부터 도주하였을 때 창피하였으며, 예수가
표적을 보이라는 바리새인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원통하였으며, 그의 주가 힘의 현시활동에 의지하기를
거절하였을 때 당황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닥이 난
재정 때문에 우울해졌고 어떤 때는 낙심하였다. 게다가
유다는 군중들의 열렬함이 그리웠다.

157:7.3 (1751.2) 다른 사도들 각자도 어떤 면에서 좀 다르긴 해도 비슷하게 시험과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였다. 적어도 그들은 유다보다는 더 많이 주(主)를 사랑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와 함께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갔었기 때문이다.

157:7.4 (1751.3) 유대 지방 출신인 유다는 최근에 예수가 사도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개인감정으로 받아들였으며; 그는 예수의 이 말씀을 자신에 대해 은밀히 암시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유다의 가장 큰 오류는 다음의 것들 이었다: 여러 번에 걸쳐, 예수가 자기 사도들을 그들끼리 기도하러 보내곤 하였을 때, 유다는 우주의 영적 힘과 진지한 교제에 잠겨있는 대신에 인간의 두려워하는 생각에 빠졌으며, 동시에 복수심을 품는 그의 불행한 성향에 굴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사명에 관한 미묘한 의심을 품는 일을 계속하였다.

157:7.5 (1751.4) 이제 예수는 자기 사도들과 함께 헤르몬 산에 가고자 하였다. 그는 거기에서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아들이로서의 네 번째 위상을 개시하려고 정하였었다. 그들

중의 일부는 그가 요단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참석해서 사람의 아들이로서의 그의 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으므로, 그는 그들 중 몇 명이 또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새롭고도 대중을 위한 역할을 시작한다는 권위의 말씀도 들을 수 있도록 같이 있기를 바라셨다. 따라서 8월 12일, 금요일 아침에 예수가 12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다: "저 산 너머로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양식을 마련하고 너희가 준비하도록 하여라. 영이 나에게 그곳에서 땅에서의 나의 일을 완결하기 위한 자질을 부여받도록, 가라고 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체험을 통하여 내 형제들 또한, 나와 함께 가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강한 힘을 얻도록 내가 데리고 가고 싶다..

제 158 편 변모의 산

158:0.1 (1752.1) 예수와 그의 연관-동료들이 헤르몬 산 어귀에 당도한 것은 서기 29년 8월 12일 금요일 해가 지는 무렵이었는데, 그 곳은 주(主)가 유란시아의 영적 운명을 확립시키고 루시퍼의 반란을 기술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하여 홀로 그 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 티그라스가 기다렸던 바로 그 장소와 가까웠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서 곧 닥쳐올 사건들을 위해 영적 준비를 하면서 이곳에서 이틀 동안 머물렀다.

158:0.2 (1752.2) 일반적으로, 예수는 그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하여 미리 알고 계셨으며, 그의 사도들이 모두 이 체험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매우 고대하였다. 예수가 그들과 함께 그 산의 어귀에서 머무신 것은, 자신에 대한 이 계시에 그들이 준비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토록 빨리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낸 천상의 존재들의 방문에 대한 온전히 체험하기에는 그들의 영적 차원이 아직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예수는 자신의 모든 연관-동료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경우마다 늘 자기를 따르게 하였던 세 명에게만 동행을 허락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만이, 비록 일부분이기는 하였지만 주(主)와의 이 독특한 체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제 1 장. 변모

158:1.1 (1752.3) 8월 15일 월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와 세 명의 사도들은 헤르몬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으며, 그리고 이

날은 뽕나무 아래 길가에서 베드로가 했던 한낮의 잊을 수 없는 고백이 있는지 옛새가 지난 때였다.

158:1.2 (1752.4) 예수는 육신에서의 그의 증여의 진보와 함께 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들의 활동행위를 위하여, 이 체험이 그 자신이 창조한 우주에 관계되고 있음에 따라서, 혼자서만 따로 산을 오르시도록 부름을 받았었다, 이 비상한 사건이 예수와 사도들이 이방인들의 땅에 있는 동안에 일어나도록 시간이 정해졌다는 것과, 그리고 그 사건이 실제로 이방인들의 산 위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158:1.3 (1752.5) 정오 직전에 그들은 산 중턱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점심을 먹는 동안 예수는 세 사도들에게 자신이 세례받은 이후에 곧 가졌었던 요단의 동쪽에 있는 언덕에서의 체험 중에서 어떤 것들을, 그리고 또한 이 쓸쓸한 은신처로 그가 예전에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헤르몬 산에서의 자신의 체험을 조금 더 이야기하였다.

158:1.4 (1752.6) 소년 시절에 예수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그 언덕을 자주 오르셨고 에스드렐론 평원에서 여러 제국들의 군대들이 싸웠던 전투들에 대하여 꿈을 꾸곤

하였다; 지금 그는, 유란시아에 자신을 증여한 연극의 마지막 장면들을 공연하기 위하여 요단의 평원으로 내려가도록 그를 준비시키는 자질을 부여 받아들이기 위하여 헤르몬 산을 오르셨던 것이다. 주(主)는 이 날 헤르몬 산에서 고심하였던 것을 포기하고 우주 권역의 자신의 통치권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파라다이스에 계신 영원한 아들의 지령에 포용된, 신성한 아들관계의 그의 계층에서의 필요조건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그 제시되어 있는 뜻도 끝까지 전적으로 이루어드리기로 작정하였다. 8월이었던 이 날에 그의 세 사도들은 그가 모든 우주 권한으로 부여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아들로써 이 땅에서의 일생을 완결하도록 그를 홀로 두면서, 천상(天上)의 메신저들이 떠나는 것을 그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158:1.5 (1753.1) 그 사도들의 신앙은 5,000명을 먹일 때 최고조에 달하였으나, 곧 급속도로 줄어들어서 거의 전무(全無)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제, 주(主)가 자신의 신성을 시인한 결과로, 침체되던 열 두 사도들의 신앙은 이어지는 몇 주 간에 걸쳐서 다시 최고조에 달하게 되며, 그 뒤로는

오직 점진적인 쇠퇴만을 체험하게 된다. 그들 신앙의 세 번째 부흥은 주(主)의 부활 후에 이르기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

158:1.6 (1753.2) 이 아름다운 오후에 세 시쯤 되어서 예수는 세 사도들을 떠나시면서 “아버지와 그의 메신저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잠시 나 혼자 따로 가겠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앞으로 있을 사람의 아들의 증여의 사명활동에 관한 모든 너희의 체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였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이르신 후에, 예수는 가브리엘과 아버지 멜기세덱과 긴 회의를 위해 물러났고, 여섯 시가 되기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예수는 자기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사도들의 염려를 보시자, 말씀했다; “왜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너희들도 잘 아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때 너희는 무엇 때문에 의심하느냐? 내가 이제 분명히 말하지만 사람의 아들은 너희들 한 가운데서 그리고 너희들 중의 하나로서 그의 모든 일생을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기운을 내어라; 나는 나의 일이 완결되어질 때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158:1.7 (1753.3) 사도들이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주(主)에게 질문하였다. “우리는 형제들과 떨어져서 얼마 동안이나 더 이 산에서 머무르게 됩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영광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그 모든 것들이 진리임을 알게 될 때까지이다.” 그리고 그들은 빨강게 달아오른 모닥불 곁에서 루시퍼의 반란에 관한 관련사들을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지자, 매우 이른 아침부터 여행을 시작하였는지라 사도들의 눈은 점차 무거워지기 시작하였다.

158:1.8 (1753.4) 세 사도들은 약 반 시간쯤 깊은 잠이 들었다가, 곁에서 탁탁하는 소리를 듣고 급히 깨어나,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천상의 빛으로 복장을 한 빛나는 두 존재들과 예수가 긴밀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크게 깜짝 놀라고 경악하였다. 그리고 예수의 얼굴과 모습은 하늘의 광채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세 명은 이상한 언어로 대화를 하였지만, 그러나 어떤 일에 대한 얘기에서,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한 이들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실수를 일으키는 추측을 하였다; 실체 안에서 그들은 가브리엘과 아버지 멜기세덱 이었다. 예수의

요청에 의하여, 사도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도록 하기 위하여 물리통제자들이 조치하였던 것이다.

158:1.9 (1753.5) 세 사도들은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이성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으나, 그 눈부신 광경이 그들의 앞에서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이 홀로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자, 베드로가 맨 먼저 정신을 차리고 말하기를, “예수님, 주(主)여,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보는 기쁨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이 없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싫습니다. 원한다면, 우리로 여기에 머물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세 개의 장막을 짓되,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혼동된 상태로 인하여, 그리고 그 때에는 이 외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으므로 이 말을 하였던 것이다.

158:1.10 (1753.6) 베드로가 아직 말을 마치지 않았을 때, 은빛 구름이 가까이 다가와서 그들 네 사람위에 드리워졌다. 이 때 너무나도 놀란 사도들이 땅에 엎드려 경배할 때에, 그들은 예수가 세례 받으실 때에 들었던 것과 동일한 음성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명심하라.” 구름이 사라지자, 예수와 그들 셋 외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예수가 그들에게 다가와 손을 대시며 말씀하였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도들은 정말로 두려워하였다; 자정이 되기 직전에 산을 내려가려고 준비하면서 세 사람은 말이 없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다.

제 2 장. 산에서 내려옴

158:2.1 (1754.1) 산을 반쯤 내려오는 동안 그들은 한 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자 예수가 말을 꺼내면서 대화를 시작하였다. “사람의 아들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기까지는 이 산에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아무에게도, 심지어는 너희 형제들에게도 말하지 말라.” 세 사도들은 주(主)께서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기까지”라고 말씀하는 것에 크게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예수를 해방자, 하느님의 아들로써 믿는 신앙을 아주 최근에 다시 다짐했고,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이제 막 영광중에 변모되신 주(主)를 보았었는데, 주(主)가 지금 “죽은 자로부터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다니!

베드로는 주(主)가 죽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몹시 떨어졌으며—그런 관념을 떠올리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야고보나 요한이 이 말씀에 관련된 질문을 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대화를 전환하려고 애를 썼지만, 다르게 이야기할 것을 찾지 못하였으며, 마음에 처음 떠오른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주(主)여, 성서에 말씀하기를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만 한다고 하였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베드로가 회피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였다. “사람의 아들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엘리야가 정말로 먼저 와야 하며, 그는 많은 고통을 받고 결국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와 있는데, 그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에게 행하였다.” 그제야 세 사도들은 예수가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면, 요한이 선지자 엘리야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예수는 알고 계셨다.

158:2.3 (1754.3) **예수가 부활 이후에 얻게 될 자신의 영광을 미리 맛 본 사실에 대하여 그들에게 침묵하도록 명한 것은, 지금 메시아로서 받아들여지는 존재인 그가, 기적을 베푸는 해방자라는 그들의 잘못된 개념에 어떤 보탬이 되어, 그 개념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해보기는 하였지만, 주(主)가 부활한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158:2.4 (1754.4)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는 그들에게 말씀했다; “너희는 나를 사람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미 정착되어 있는 결심에 따라서 나를 받아들이도록 허락은 하였지만,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의 의지적 경향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면, 너희는 많은 실망과 많은 시험을 체험하는 것을 반드시 대비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해왔던 훈련은, 너희 자신의 선택에 의해 닥칠 이 슬픔조차도, 두루 넘기면서 너희가 승리하도록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158:2.5 (1754.5) 예수가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변모 산에 오르셨던 것은, 그들이 일어난 일을 증거 하는데 다른 사도들보다 어떤 면에서든지 좀더 잘 준비되었기 때문이거나, 또는 그러한 드문 특권을 누리기에 영적으로 더 적당하였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다. 전혀 아니다. 예수는 열 둘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체험을 위해 영적으로 분별화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단독으로 친교를 가지고 싶어 홀로 있기를 원할 때마다 그를 수행하도록 배정된 세 사도들만을 데리고 가셨던 것이다.

제 3 장. 변모의 의미

158:3.1 (1755.1)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변모 산에서 목격한 것은, 그 사건 많은 날에 헤르몬 산에서 일어난 천상의 구경거리를 얼핏 잠깐 본 것에 불과하였다. 그 변모는 다음과 같이 처하게 된 일 이었다:

158:3.2 (1755.2) 1.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의 육신화된 일생의 증여가 충만함을,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어머니-아들이 받아들이는 의식이었다. 영원한 아들의 필요조건에 관한

한, 예수는 이제 그들의 충만함에 대한 확증을 받았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그 확증을 예수께 가져왔다.

158:3.3 (1755.3) 2. 필사자 육신의 모습에서의 유란시아 증여의 충만함을 이룸에 따른, 무한한 영의 만족에 대한 증언이었다. 무한한 영의 우주 대표자, 구원자별에 있는 미가엘의 직계 연관-동료이며 언제까지나-제시되어 있는 공동작업자는 이때에 아버지 멜기세덱을 통하여 말하였다.

158:3.4 (1755.4) 예수는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사명활동이 성공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메신저들에 의해 제출된 이 증언을 환영하기는 하였지만, 그의 아버지께서 유란시아 증여가 이제 완결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였다;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현존이 단지 예수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를 통하여 목격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명심하라.” 또한 이 내용은 세 사도들도 들을 수 있도록 말로 들려졌다.

158:3.5 (1755.5) 천상의 존재들이 방문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는 그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애쓰셨고; 필사자로서의

증여가 자연적으로 종결되는 것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이 예수께 대한 변모의 의의(意義)였다. 반면에 세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주(主)가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써,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 위상에 들어가시는 것을 뜻하는 사건이었다.

158:3.6 (1755.6) 가브리엘과 아버지 멜기세덱의 공식적인 방문 이후에, 예수는 이들, 사명활동하는 그의 아들들과 비공식적인 대화를 가졌고, 그리고 우주의 일상 관련사들에 관한 그들과 교제하였다.

제 4 장. 간질병에 걸린 소년

158:4.1 (1755.7) 예수와 그의 동행자들이 사도 야영지에 도착한 것은 화요일 아침 식사시간 바로 전이었다. 그들은 가까이 가면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주변에 몰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곧 큰 소리로 언쟁하는 것과 오십 명쯤 되는 사람들의 논쟁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의 서기관들 그리고 마가단 으로부터의 여행 때에 예수와 연관-동료들을 따라왔던 믿는 제자들로, 반씩 갈라져서 아홉 명의 사도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158:4.2 (1755.8) 군중들은 여러 가지로 논쟁하였지만, 주된 논쟁은 예수를 찾아서 전날 도착하였던 티베리아스에 사는 어떤 사람에 관한 것이었다. 이 사람은 사펫의 야고보라는 자인데, 그에게는 열 두 살쯤 되는 외동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은 심한 간질병에 들러 있었다. 이 소년은 이 신경성 질병 이외에도 그 때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통제되지 아니하고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며 해를 끼치는 반란자 중도자들 중의 하나에 의해 사로잡히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이 어린아이는 간질병에 걸릴 뿐만 아니라 귀신들려 있었던 것이다.

158:4.3 (1755.9) 이 아이의 아버지는 헤롯 안티파스 정부의 하위직 공무원이었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아들을 예수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찾기 위하여 거의 두 주간 동안 열정을 가지고 빌립의 영지 서쪽 경계선을 따라 두루 찾아다녔다. 그러나 그는 예수가 세 사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으므로 이날 정오까지도 그 무리들을 따라잡지 못하였던 것이다.

158:4.4 (1756.1) 아홉 사도들은 이 사람이 예수를 찾기 위해 거의 사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갑자기 나타났을 때

몹시 놀라고 심히 동요되었다. 이 무리가 도착하였을 때 아홉 사도들은, 적어도 그들 대부분은, 이전에 가졌던 유혹—앞으로 이루어질 왕국에서 누가 클 것이냐를 토론하는 것—에 굴복되었었다; 그들은 사도들 각자에게 어떤 지위가 주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논쟁하기에 바빴었다. 그들은 다만 메시아의 물질적인 사명활동에 대해 오랫동안 신봉하였던 관념으로부터 전적으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진정한 해방자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예수 자신이 용납하였고—적어도 그의 신성의 사실을 주(主)가 인정하였으므로— 주(主)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동안에, 그들 가슴 속에 있는 가장 큰 희망과 포부에 대한 얘기에 빠져드는 것보다 더 자연스런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사팻의 야고보와 그의 동료들이 예수를 찾아 그들에게 왔을 때 사도들은 이 문제를 토론하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158:4.5 (1756.2) 안드레가 이 부자(父子)를 환영하기 위하여 다가와서 말하기를, “누구를 찾으십니까?” 사팻의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친절한 선생님, 나는 당신의 주(主)를 찾고 있습니다. 고통 받는 내 아들을 고쳐보려고 합니다. 예수가 내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심한 발작으로 너무나도 고통을 받아서 거의 생명을 잃을 뻔 하였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계속하여 설명하였다.

158:4.6 (1756.3) 사도들이 듣고 있을 때, 시몬 젤로떼와 가롯 유다가 아이의 아버지 앞으로 나서면서 말하였다. “우리가 그 아이를 고칠 수 있으니; 당신들은 주(主)가 돌아오시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 왕국의 대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더 이상은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는 해방자이시며 그리고 그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열쇠들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안드레와 도마는 이때까지도 한 쪽에서 의논을 하고 있었다. 나다니엘과 다른 사도들은 놀라서 지켜보고 있었다; 무례한 행동은 아닐지라도 시몬과 유다의 갑작스러운 대담성에 모두 아연실색하고 있었다. 그 때 아이의 아버지가 말했다; “만일 당신들에게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면, 이 숙박으로부터 내 아이를 구원해 줄 말씀을 말해주실 것을 내가 기원합니다.” 그러자 시몬이 앞으로 나서면서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명령하였다. “이 더러운 영아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말에

복종하라.” 그러나 그 아이는 더욱 격렬하게 발작할 뿐이었고, 서기관들은 비웃음으로 사도들을 조롱하였으며, 실망한 신자들은 쌀쌀한 비평가들의 조롱을 당했다.

158:4.7 (1756.4) 안드레는 이 무분별한 노력과 참담한 실패에 깊이 통분하였다. 그는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사도들을 옆으로 불렀다. 잠시 동안 묵상한 후에, 실패하였다는 상처를 예민하게 느끼고 그들 모두에게 굴욕감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드레는 귀신을 쫓아내고자 두 번째의 시도를 하였지만, 결국 실패만이 그의 노력에 대답할 뿐이었다. 안드레는 솔직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아이의 아버지가 하루 더 그들과 머물든지 아니면 예수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권유하면서 말했다; “아마 이러한 종류는 주(主)께서 직접 명하여야만 쫓겨 날 것입니다.”

158:4.8 (1756.5) 그리하여, 원기가 넘치고 황홀경에 빠진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예수가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에, 그들의 아홉 형제들도 그들만큼 혼돈과 기가 꺾인 굴욕감 속에서 잠이 달아나 있었다. 그들은 풀이 죽고

수그러든 무리였다. 그러나 사뻏의 야고보는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비록 그들이 예수가 언제쯤 돌아오실 것이라는 아무런 견해를 줄 수는 없었지만, 그는 주(主)가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기로 작정을 하였다.

제 5 장. 예수가 아이를 고치심

158:5.1 (1757.1) 예수가 가까이 오시자 아홉 사도들은 더욱 안심이 되어 그를 환영하였으며,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의 얼굴에 나타난 활력과 보기 드문 열정을 보고 더욱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예수와 세 형제들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달려 나갔다. 그들이 인사를 하는 동안 무리들이 다가왔으며, 예수가 물었다. “우리가 가까이 올 때에 너희가 무슨 일로 논쟁을 하였느냐?” 그러나 당황하고 낙심한 사도들이 주(主)의 질문에 대답할 겨를도 없이, 고통 받는 아이를 염려하는 그 아버지가 나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주(主)여, 저에게 오직 하나뿐인 아들이 있는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입에 거품을 품으며, 발작할 때에는 죽은 사람처럼 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영이 자주 아이를 사로잡아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어떤 때에는 아이를 물에 던져 넣기도 하며 심지어는 불 속에 넣기도

합니다. 이를 한참 갈며 많은 상처를 입은 후에야
기진맥진해 버립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이다;
아이의 어머니와 저는 너무 슬퍼서 가슴이 찢어질듯
합니다. 당신을 찾다가 어제 오후 경에 당신의 사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사도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주(主)여, 이제는 당신께서 저희를 위해 이 일을 해
주시겠습니까? 내 아들을 고쳐주시렵니까?

158:5.2 (1757.2) 예수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가까이
있는 사도들을 둘러보시며,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고 명하였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의 앞에 서 있는 모두에게 말씀했다; “오 신앙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더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하겠느냐?
신앙의 성과가 의심하는 불신의 명령에서는 나올 수
없음을 이제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배웠었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는 당황하는 그 아버지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였다. “네 아들을 여기로 데려 오라.” 사팻의
야고보가 아이를 예수 앞으로 데려오자 물었다. “소년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고통을 받았느냐?” 그 아버지가

대답하였다. “그 아이가 아주 어려서부터 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이는 심한 공격을 당하여 무리 가운데에 쓰러졌으며, 이를 갈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 격렬한 발작이 끝나자 그들 앞에서 마치 죽은 아이처럼 눕게 되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다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主)께 애원하며 말했다; “만일 내 아이를 고치실 수 있거든, 우리에게 연민을 베푸시어 제발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는 이 말을 들으시자, 그 아버지의 근심하는 얼굴을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했다; “내 아버지의 사랑의 힘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네 신앙의 진실함과 한계를 의심해 보라. 실제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그 때 사팻의 야고보는 신앙과 의심이 뒤섞여서 오랫동안 기억될만한 말을 하였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에 도움을 주시기 원합니다.”

^{158:5.3 (1757.3)} 예수는 이 말을 들으시고, 앞으로 다가가셔서 그 아이를 손으로 붙드시고 말씀했다; “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에 경의를 표하여 이 일을 행하고자 한다. 내 아들이, 일어나라! 불순종의 영아 그에게서 나와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아버지의 손에 쥐어 주면서 말씀했다; “네 길을 가라. 아버지께서 네 혼의 갈망을 들어주셨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의 적들까지도,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158:5.4 (1757.4) 변모의 광경과 체험으로 영적 황홀경을 맛본지 얼마 되지 않는 세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도 빨리 동료 사도들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광경으로 돌아온 것은 정말로 환상에서 깨어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왕국의 열 두 대사들 모두에게 언제나 그러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생 체험 안에서 환희와 굴욕사이에서 늘 오락가락하였다.

158:5.5 (1758.1) 이것은 육체적인 병과 영적인 질병의 이중 고통을 진정으로 치료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시간부터 영구적으로 낮게 되었다. 야고보가 회복된 아들과 길을 떠나자, 예수가 말씀했다; “이제 우리도 케자리아-빌립보로 가자; 즉시 준비하라.” 남쪽을 향하여 여행하는 동안 그들은 침묵하였으며 무리들이 뒤를 따랐다.

제 6 장. 셀수스의 정원에서

158:6.1 (1758.2) 그들은 셀수스와 함께 밤을 보내었고, 저녁에는 정원에 머물렀으며, 식사와 휴식이 끝나자 열 두 사도들이 예수께 모였고, 도마가 말하였다. “주(主)여, 뒤에 남아있던 우리는 산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무엇이 당신과 함께 한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크게 기운 나게 했는지 여전히 모른 채로 있습니다. 보건대 산에서 일어났던 저들의 일들이 지금은 밝힐 수 없는 것 같으니, 당신께서 우리의 실패에 관한 말씀과 이 일로 인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158:6.2 (1758.3) 그러자 예수는 도마에게 대답하여 말씀했다; “네 형제들이 산 위에서 들은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도 밝히 알려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너무도 어리석게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해 주겠다. 너희의 주(主)와 그의 동행자들, 너희 형제들이 아버지의 뜻을 더 많이 알기 위하여 그리고 신성한 뜻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더욱 풍성한 지혜의 자질을 청하기 위하여 어제 저쪽 산에 올라간 동안에, 남아서 이곳을 지키면서 영적 통찰력의 마음을 체득하기를 분투하고, 아버지의 뜻이 좀 더 충분하게 계시되도록 우리와 함께 기도하라고 지시를 받았던

너희들이, 너희 명령에 따르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에는 실패하였지만. 그러나 그 대신, 너희는 유혹에 양보하면서, 하늘의 왕국—너희가 깊은 생각에서 끈질기게 고집하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왕국—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해 보려는 너희의 오래된 악한 경향에 빠져 들었다. 그리고 나의 왕국이 이 세계에 있지 않다고 반복하여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실수하는 개념에 집착하고 있다.”

158:6.3 (1758.4) “너희 신앙이 사람의 아들에 대한 정체성을 파악하자마자, 세속적인 승진을 위한 이기적인 욕구가 슬며시 너희에게 임하였고, 누가 하늘의 왕국에서 클 것인지에 대하여 너희끼리 의논하게 되었지만, 그 왕국에 대하여 너희가 아무리 상상을 계속할지라도, 그러한 왕국은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영적 형제신분의 왕국에서는, 큰 자는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볼 때 아주 작게 되어야 하고, 그리하여 형제들에게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영적 위대성은 하느님과-같은이라는 사랑을 납득함에 있는 것이지, 자아의 고취를 위한 물질적 힘의 행사를 즐기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시도하였지만 완벽하게 실패하였던 그것에서, 너희의 목적은 순수하지 않았다. 너희의 동기는 신성하지 않았다. 너희의 이상은 영적인 것이 아니었다. 너희의 열정은 이타적인 것이 아니었다. 너희의 과정은 사랑에 기초하지 않았으며, 너희의 달성의 목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

158:6.4 (1758.5) “그러한 것들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할 때를 제외하고는, 확립된 자연 현상의 과정을 너희가 시간-단축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겠느냐? 영적 힘이 없이는 너희가 영적 일을 이룰 수가 없다. 그리고 가능성이 보일 때일지라도 세 번째의 근본적인 인간 요소,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하는 개인적 체험이 있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도 행할 수가 없다. 너희는 항상 물질적인 현시활동이 있어야만 왕국의 영적 실체들에 대해 매혹을 가질 수 있느냐? 신비한 일들을 너희 앞에 보여 주지 않으면 내 임무에서의 영의의(意義)를 깨달을 수가 없느냐? 언제가 되어야 너희는 모든 물질적 현시활동의 외향적 출현과 관계없이 왕국의 보다 높은 영적 실체들에게 충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

158:6.5 (1759.1)

열 두 사도들에게 말씀을 마치시면서 덧붙였다:
“자 이제는 가서 쉬어라. 날이 새면 마가단으로 돌아가서
데카폴리스 지방의 마을과 도시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곳에서 상의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체험의 결론으로, 내가 산에서 너희 형제들에게
말하였던 것을 너희 각자에게 선언하겠으니, 이 말을 너희
가슴 깊은 곳에 잘 간직해 두어라: 사람의 아들은 이제
증여의 마지막 위상에 들어간다. 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손에 내가 넘겨 질 때에 너희 신앙과 헌신에 대한
크고 최종적인 시험이 얼마 안 있어서 있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꼭 기억하라: 사람의 아들이 죽음에
넘겨지겠으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158:6.6 (1759.2)

그들은 슬픔에 가득 차서 물러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은 당황하였다; 이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주(主)가 말씀한 것들에 대하여 어떤 것도 묻기를
두려워하였지만, 부활에 뒤따라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상기해 보았다.

제 7 장. 베드로의 항의

158:7.1 (1759.3)

수요일 아침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은 벳세다-줄리아스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마가단 공원을 향하여 케자리아-빌립보를 출발하였다. 사도들은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일찍 일어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둔감한 알패오 쌍둥이들까지도 예수의 죽음에 대한 말씀 때문에 충격을 받았었다.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메롬 물가를 조금 못 미쳐서 다마스쿠스 길에 다다르자, 예수는 서기관들과 다른 사람들이 지금도 그들 뒤를 쫓아오고 있는 것을 아시고, 갈릴리를 통과하는 다마스쿠스 길을 이용하여 가버나움으로 가자고 지도하였다. 이렇게 한 것은, 그를 쫓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와 사도들은 헤롯 안티파스를 두려워서 그의 영지를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동쪽 요단 길로 내려갈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예수는 그를 쫓아오고 있는 비난자들과 군중들을 피하여 오로지 사도들과만 이 날을 보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158:7.2 (1759.4)

그들은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여 여행하고 있었으며,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그늘 아래에 멈추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상당히 지나간 시간이었다. 식사를 다 마치자, 안드레가 예수께 질문하였다. "주(主)여,

형제들이 당신의 난해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는데, 우리를 떠나 죽으실 것이라는 이상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제발 우리에게 숨기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58:7.3 (1759.5) **예수가 안드레에게 대답했다; “나의 형제여,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그 증여의 삶을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너희에게 부득이 사실대로 드러내기 시작하게 된 것은, 너희가 나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계속하여 나를 메시아로 믿으려고 고집하고, 그 메시아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권좌에 앉아야만 한다는 관념을 버리려하지 않으나;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얼마 안 있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우두머리 사제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이 모든 일 이후에 죽임을 당하였다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계속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비유가 아니며; 그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올**

때, 이 사건들에 너희가 잘 준비되도록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가 아직 말씀을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 앞으로 뛰어 나아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주(主)여, 주(主)와 논쟁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주(主)께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158:7.4 (1760.1)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그가 예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었지만; 주(主)의 인간 본성은 선의의 감동을 주는 이 말들 속에서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그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의 이 세상 증여를 끝마치려는 그의 결정을 바꾸도록 미묘하게 유혹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셨다. 비록 그의 다정하고 충성스러운 친구들이지만, 그를 단념시키려는 제안들을 허용하는 위험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였다: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적, 유혹하는 자의 영으로 느껴진다. 네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네가 나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편에 있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네가 나에 대한 너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느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라.”

158:7.5 (1760.2) 예수의 찌르는 듯한 꾸지람의 맨 처음 충격에서 그들이 정신을 차린 후, 다시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주(主)는 덧붙여 말씀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말고, 매일 매일의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 오라. 누구든지 이기적으로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것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 자기 자신의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죄 많고 위선적인 세대 속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든 천상의 무리들의 현존 안에서 내가 내 아버지 앞에 영광 안에서 나타날 때에 너희를 시인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 앞에 서 있는 너희들 중 여럿은 힘과 함께 오는 이 하느님의 왕국을 보기까지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158:7.6 (1760.3) 예수는 자기를 따르려면 반드시 걸어야만 할 고통스럽고 상충되는 그 길에 대하여 열 두 사도들에게 꾸밈없이 설명하였다. 자신들에게 굉장한 지위를 보장하는 이 땅에서의 왕국을 끈질기게 꿈꾸던 이들 갈릴리 어부들에게 이 말씀들은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는가! 그러나 그들의 충성심은 용기 있는 이 호소로 감동이 되었으며, 그를 저 버릴 생각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예수는 그들이 홀로 갈등에 빠지도록 버려두지 않았다; 그들을 인도해 주었다. 오직 용기를 가지고 따라오기만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158:7.7 (1760.4) 열 두 사도들은 예수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관념을 서서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는 어렴풋이 이해할 뿐이었으며, 반면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 속에 새겨지지 못하였다. 세월이 지나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변모되신 산에서의 체험을 상기하면서, 이 문제들에 대하여 좀 더 납득하게 되었다.

158:7.8 (1760.5) 주(主)께서 열 두 사도들과 같이하였던 전 기간동안, 이번에 베드로와 그들 모두에게 실시된 것처럼, 눈을 번쩍이시면서 빠른 어투로 꾸지람의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은 단지 몇 번뿐이었다. 예수는 그들의 인간 결점에는 항상 참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그의 생애의 나머지에 관하여, 그의 아버지의 뜻을 암암리에 실행하려는 계획에 반대되는 절박한 위협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 사도들은 글자 그대로 대경실색하였다; 매우 놀랐고 무서웠다. 그들은 어떻게 애통함을 표현해야 좋을지 몰라서 찢찢 매었다. 주(主)께서 무엇을 견디시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 체험에 주(主)와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서서히 깨닫게 되었지만, 그의 마지막 시절의 절박하게 다가오는 비극에 대한 이들 초기 암시가 있는 후 훨씬 뒤까지도, 그들은 다가오고 있는 이들 사건의 실체를 자각하지 못하였다.

158:7.9 (1761.1)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은 침묵 속에서 마가단 공원에 있는 야영지를 향하여 가버나움의 길을 따라서 출발하였다. 오후가 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와 한

마디도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자기들끼리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한편, 안드레만이 주(主)와 이야기를 하였다.

제 8 장. 베드로의 집에서

^{158:8.1 (1761.2)} 황혼 무렵에 가버나움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인적이 드문 길을 따라서 곧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였다. 다윗 세베대가 그들이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동안, 그들이 시몬의 집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 예수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보시며 물었다: “오늘 오후에 너희가 함께 걸어오면서, 너희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그토록 진지하게 나누었느냐?” 사도들은 그들 중에 여럿이, 앞으로 이루어질 왕국에서 그들이 무슨 지위를 가질 것인가;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 등에 관하여, 헤르몬 산에서부터 시작하였던 똑같은 토론을 계속하였었기 때문에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었다. 예수는 그 날 사도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었는지를 아시고, 베드로의 어린 아이들 중에서 하나를 손짓으로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 앉히시고 말씀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더욱 낮아지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서 거의 진보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이 작은 아이처럼 되는 그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작은 자를 그렇게 받아는 자가 나를 받아들이는 자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또한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그 왕국에서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육신으로 있는 너희 형제들에게 이 선한 진리들을 베풀기 위하여 노력하라. 그러나 누구든지 이 작은 자들 중의 하나를 넘어지도록 하면, 맷돌을 목에 매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만일 네 손으로 한 것들이나, 또는 네 눈으로 본 것들이 왕국의 진보에서 실족케 한다면, 이들 매달렸던 우상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는 이들 우상에 매달리고 그리고 스스로 왕국을 가로막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생에서 사랑했던 것 중에 많은 것들을 버리고서라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욱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 작은 자 가운데 하나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저희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사는 무리들로서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158:8.2 (1761.3) **예수가 말씀을 마치시자, 그들은 배를 타고 마가단 쪽으로 항해하여 건너갔다.**

제 159 편 데카폴리스 전도 여행

159:0.1 (1762.1)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이 마가단 공원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의 백 명 정도 되는 전도자들과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여자 대원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데카폴리스의 여러 도시들에서 가르치며 전파하는 전도 여행을 즉시 시작하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159:0.2 (1762.2) 8월 18일, 목요일인 이 날 아침에, 주(主)는 따르는 무리들을 모두 불러서 사도들마다 열 두 전도자들 중 하나씩과 짝을 짓고, 나머지 전도자들도 열 두 집단으로 나뉘어서 데카폴리스의 도시들과 마을들에 나가 사명활동을 하도록 지도하였다. 여자 대원들과 다른 제자들은 예수와 남아 있도록 지도하였다. 예수는 이 여행에 4 주를 보내기로 하였으며, 9월 16일 금요일까지 마가단으로 모두 돌아오도록 지도하였다. 예수는 이 기간 동안에 종종 그들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달이 지나는 동안, 열 두 집단은 게라사, 가말라, 히포, 자폰, 가다라, 아빌라, 에드레이, 필라델피아, 헤스본, 디움, 스키토폴리스, 그리고 다른 많은 도시들에서 수고를

하였다. 이 여행 동안에는 병을 고치는 기적이나 다른 비상한 사건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제 1 장. 용서에 대한 교훈

159:1.1 (1762.3) 예수는 어느 날 저녁 히포에서, 한 제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용서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셨다. 주(主)께서 말씀했다:

159:1.2 (1762.4) "만일 어느 인정 많은 사람이 일백 마리의 양을 소유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면, 그가 아흔 아홉 마리를 남겨 두고 길을 잃은 한 마리를 즉시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일 그가 선한 목자라면, 그가 발견할 때까지 그 잃은 양을 계속 탐색하지 않겠느냐? 마침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면, 그 양을 어깨에 둘러메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들을 청하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쁨을 향유합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아흔 아홉 명의 의로운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을 더 기뻐한다는 것을 내가 선언한다. 그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길을 잃도록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며, 하물며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너희

종교에서 하느님께서 회개하는 죄인들을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왕국복음 안에서 아버지는 그들이 엄중하게 회개의 생각을 가지기도 전에, 먼저 그들을 찾아내려고 나아가고 있다.

159:1.3 (1762.5)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니, 너희들도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시니, 너희들도 마땅히 서로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만일 너희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그에게 가서 재치와 인내심을 가지고 그의 결함을 지적해 주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너와 그 형제 둘이서만 하도록 하라. 만일 그 형제가 네 말을 들으면,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네 형제가 네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계속 실수를 행하면, 네가 다시 가되, 모두에게 친구인 둘 혹은 세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서 네 증언을 확인하는 증인으로 하고 그리고 너에게 죄를 저지르고 있는 형제를 네가 자비롭고도 공정하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라. 만일 그가 형제들의 말도 거절하면, 회중(會衆)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려도 무방하고, 만일 그가 모든 형제들의 말도 거절하면, 그들이 현명한 생각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라;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은 왕국 밖으로 쫓아내도록 하라. 그리고 한편, 너희가 마치 네 동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기라도 한 것처럼 행하거나, 죄를 용서하든지 아니면 기타 방법으로 마치 하늘 무리 감독자들의 특권을 빼앗는 듯한 행동은 결코 용납되지 않으나, 그러나 이 세상 왕국 안에서의 현세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일은 너희에게 맡겨져 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신성한 판결에 너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 그들이 형제신분의 현세적 복지에 관계하도록 행동하는 문제는 네가 결정해도 될 것이다. 또한 그러한 형제신분의 단련과 관련된 이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너희가 땅에서 판결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늘에서 인지(認知)될 것이다. 비록 너희가 개별존재의 영원한 숙명을 결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집단의 행위에 관하여 너희가 규율을 제정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너희 중에 두 세 사람이 이 일들 중에 무엇이든지 의견이 일치되고 내게 구한 것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한 너희가 요청한 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모든 말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왜냐하면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기 때문이다.”

히포에서 사명활동하는 자들의 책임을 맡은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예수가 말씀하는 것을 듣고 질문했다; “주님, 내 형제가 내게 대하여 죄를 지을 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일곱 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흔 일곱 번이라도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그의 신하들에 대한 회계계산을 명한 어떤 임금과 같다. 그들이 장부(帳簿)의 조사를 수행하기 시작하자, 우두머리 신하들 중의 하나가 끌려나와 왕에게 일 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고백하였다. 이 때 왕의 재판정에서 일하는 한 관리가 그 신하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과 이 빚을 갚을 힘이 없음에 대하여 변호해 주었다. 그러자 왕은 그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아이들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명하였다. 그 우두머리 신하가 이 엄중한 판결을 듣고, 왕 앞에 엎드려 자비를 베풀어서 시간을 더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여 말하기를, ‘주님이시여,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게으른 하인과 그의 가족들을 보자, 연민이 들었다. 그는 그를 놓아주라고 명하였고, 빚을 모두 탕감해 주도록 명하였다.

“그래서 왕의 손에서 이렇게 자비와 용서를 받아들이게 된 이 우두머리 집사는, 자기 일에 몰두하였는데, 자기 아래에 있는 집사 가운데 일 백 데나리온 밖에 빛지지 아니한 하나를 찾아가, 그를 붙잡고 목을 조르며 ‘내게 빛진 것을 모두 갚으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이 동료 집사는 그 우두머리 집사 앞에 엎드려, 간청하여 말했다; ‘단지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곧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두머리 집사는 그의 동료 집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빛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다른 동료 하인들이 되어 가는 일을 보고, 너무나 괴로워하다가 그들의 왕, 주님에게 나아가 고하였다. 왕이 우두머리 집사의 모든 소행을 듣고, 은혜를 모르고 용서를 베풀지 아니하는 이 사람을 불러서 말했다; ‘너는 악하고 무익한 집사이다. 네가 연민을 베풀기를 구하였을 때, 너를 용서하고 모든 빛을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네게 자비를 베풀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네 동료 집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였느냐?’ 왕은 매우 화가 나서 은혜를 모르는 우두머리 집사를 옥졸들에게 내어주어 빛을 모두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동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들에게 더욱 풍성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같은 인간의 이러한 결점으로 인하여 너희 형제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너희가 늘 응징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님께 나아와 너희의 결점을 헤아려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 모두에게 말하겠는데: 너희가 왕국으로부터 그 선한 것들을 값없이 받았으니; 너희도 이 땅에서 네 동료들에게 값없이 주도록 하여라.”

159:1.6 (1764.1) 이렇게 하여 예수는 동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치시고 그 부당함을 밝히 가르치셨다. 계속적인 단련이 있어야만 하고, 공의가 실시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형제신분의 지혜가 우선되어야 한다. 예수는 집단으로서의 합법적이고 비판적인 권위는 인정하였지만, 개별존재로서의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 집단으로서의 이 권한부여 조차도 그것이 개인적 권한으로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한 개별존재가 평결을 내리는 데에는 편견 또는 왜곡된 감정에 의해 비뚤어질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집단의 판결은 개인적 성향에서의 위험을 제거하고 부당성을 없애는 데 더욱 적당하다. 예수는 항상 부당성, 보복과 복수의 요소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159:1.7 (1762.9) [자비와 참을성의 본보기로 일흔 일곱 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라멕이 그의 아들 두발-가인의 금속 무기 때문에 몹시 기뻐했음을 언급하는 성서 구절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그 무기들이 적의 것보다 우월하다고 비교하면서: “카인이 손에 아무 무기도 없이 일곱 배 원수를 갚았으면, 이제는 내가 일흔-일곱 배로 갚으리라.”외쳤다.]

제 2 장. 이상한 설교자

159:2.1 (1764.3) 예수는 사도 요한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가말라로 올라 가셨다. 그 날 저녁,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형식의 모임이 있는 후에, 요한이 예수께 말했다; “주(主)여, 당신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게다가 귀신들까지도 쫓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제가 어제 아스타롯에 올라갔었습니다. 이 친구는 저희와 같이 한 적이 결코 없었고, 저희들을 따르지도 않기에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말씀하였다. “그를 금하지 말라. 왕국 복음이 곧 모든 나라들에서 선포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되는 자들 모두가 너희의 지도에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의 가르침이 이미 우리의 직접적인 영향의 한계를 벗어나서 스스로 현시되고 있음을 기쁨으로 향유하라. 요한아, 내 이름으로 큰일을 한다는 자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돕게 되리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들이 나에 대하여 악한 말을 재빠르게 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나의 아들이, 이런 종류의 문제라면, 우리를 배척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라는 사실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오는 세대에는, 온전하게 자격이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하겠으나, 나는 그들을 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냉수 한 잔을 목마른 자에게 주었을 때라도, 아버지의 메신저들이 그러한 사랑의 봉사에 대하여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는 것이다.”

159:2.2 (1764.4) 이 설명은 요한을 매우 당황하게 하였다. 주(主)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배척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 경우에는 예수가 왕국의 영적 가르침들에 대한 사람들의 개인적 관계에 대하여 말씀한 것이며, 반면에 이번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다가오는 세계적 형제신분을 이룩할 다른 집단들의 일을 관할하려는, 한 신자들의 집단으로서의

행정-관리적 통제와 사법권 문제들에 관한, 신자들의 바깥쪽으로 그리고 멀리 퍼지는 사회적 관계를 말스한 것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159:2.3 (1765.1) 그러나 요한은 그의 여생에 왕국을 위해 애쓰면서 이 체험을 종종 되새기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주(主)의 이름으로 대담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불쾌한 태도를 취하였다. 예수의 발 아래에 앉아 보지도 못한 자가 감히 그의 이름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사도들은 언제나 온당치 못한 일로 여겼기 때문이다.

159:2.4 (1765.2)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가르치는 것을 요한이 금지시킨 이 사람은 사도들의 명령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옳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였고 메소포타미아로 가기 전에 카나타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덴이었는데, 예수가 게레사 근처에서 병을 고쳐 주었던 미친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주(主)께서 그로부터 쫓아낸 악한 영들이 돼지 떼 속에 들어가 벼랑으로 달려가게 하여 죽게 하였다는 것을 매우 자신하며 믿었다.

제 3 장. 교사들과 신자들을 위한 지침

159:3.1 (1765.3)

도마와 그의 일행들이 사명활동하던 에드레이에서, 예수는 하루 낮과 밤을 보내셨으며, 저녁에 가진 토론에서 진리를 설교하는 자들에게 지표가 되고 왕국 복음을 가르치는 모든 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원칙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요약하여 다시 기술한다면, 예수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159:3.2 (1765.4)

사람의 개인성을 항상 존중하라. 정의로운 원인은 결코 기세로서 권장되는 것이 아니다; 영적 승리는 오직 영적 힘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 물질적인 영향을 이용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육체적인 기세 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세에도 관련된 것이다. 남자나 여자들을 강제로 왕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압도하는 논리와 정신적인 우월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마음은 단순히 논리의 무게로 압도하거나 날카로운 웅변으로 위압하여서는 안 된다. 인간 의사 결정을 내리는 한 요소로서 감정을 전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왕국 운동을 진전시키려 하는 자들을 가르칠 때, 감정에 직접 호소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주하는

신성한 영에게 직접 호소하도록 하라. 두려움이나 연민 또는 단순한 정서에 호소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호소할 때에 공정하도록 하라; 자아-통제를 발휘하고 마땅한 절제력을 보여라; 너희 제자들의 개인성을 진실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라.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안으로 들어가겠다.”

159:3.3 (1765.5) 사람들을 왕국으로 인도할 때에 그들의 자아-존중을 상하게 하거나 꺾지 말라. 지나친 자아-존중은 적절한 겸손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끝에 가서는 자부심, 자만, 그리고 거만에 이르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자아-존중을 잃는 것은 때때로 의지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아-존중을 잃었던 자들에게는 그것을 회복시키고, 자아-존중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삼가 하도록 하는 데에 이 복음의 목적이 있다. 너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 오직 그릇됨만을 꾸짖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칭찬할 만한 것들을 너그럽게 인지하여 칭찬하는 것도 잊지 말라. 자아-존중을 잃었던 자들과 실제로 그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아-존중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내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159:3.4 (1765.6) 내성적이고 두려움이 많은 자들의 자아-존중을 손상치 않도록 조심하라. 단순한 마음을 소유한 나의 형제들을 희생시키면서 빈정거리는 일에 탐닉하지 말도록 하라. 두려움에 떠는 나의 자녀들에게 냉소적인 태도를 갖지 말라. 놀고먹는 일은 자아-존중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너희 형제들이 선택한 임무에 계속 정진하도록 그들을 권고하며, 직업이 없는 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라.

159:3.5 (1766.1) 사람들을 위협하여 왕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무익한 술책의 범죄를 결단코 저지르지 말라. 사랑을 가진 아버지는 자녀에게 겁을 주어서 오직 자기가 원하는 요구에 온순하게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는다.

159:3.6 (1766.2) 언젠가는 왕국의 자녀들은 감정상의 강한 느낌이 신성한 영의 인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어떤 것을 하거나 또는 특정한 장소에 가고자 하는, 강렬하면서도 이상야릇하게 받는 감동이, 내주 하는 영의 인도에 수반되는 충동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59:3.7 (1766.3) 육신으로 살았던 일생으로부터 영적으로 사는
보다 높은 일생으로 옮겨 간 모든 사람들이 건너야만 하는
부차적인 갈등에 관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리
경고한다. 어느 쪽 세계든지 매우 온전하게 살았던
자에게는 갈등이나 혼돈이 거의 없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옮겨가는 기간 동안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불확실성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의무를 피하도록 할 수는 없으나, 복음의 멍에는
쉽고 진리의 짐은 가볍다는 것을 기억하라.

159:3.8 (1766.4) 세상에는 생명의 빵을 바로 눈앞에 놓고도 굶어
죽는 배고픈 혼들로 가득하다; 자기 안에 살아 계신 바로
그 하느님을 찾아 다니다가 죽어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신앙으로 즉시 잡아챌 수 있는
거리에 모든 것이 있는데도, 간절한 가슴과 피곤에 지친
발로 왕국의 보물을 갈구하며 다닌다. 신앙이 종교와
가지는 관계는 돛과 배의 관계와 같다; 그것은 힘의
증가이지, 결코 일생에서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다.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오직 한가지 투쟁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에서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 오직 한가지 전투가 있으니, 그것은 의심—믿지 않음—을 이겨내는 것이다.

159:3.9 (1766.5) 너희는 왕국의 복음을 설교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하느님과의 화목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이 동료관계는 남녀 모두에게, 어떤 것이 그들의 특징적 열망과 이상을 가장 진실로 만족시키는지를 모두가 찾게 됨으로서, 똑같이 호소될 것이다. 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그들의 감정을 아끼고 그들의 연약함을 오래 참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가 죄에 대해 냉혹하고 그리고 사악한 불의에 대해 관용이 없다는 것도 말해 주어라. 내 아버지의 현존 안에서는 내가 정말로 유순하고 겸손하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에 반대하는, 죄로 가득 찬 반역과 고의적인 악행이 있는 곳에서는 내가 마찬가지로 가혹하도록 냉혹하다.

159:3.10 (1766.6) 너희는 너희 선생을 묘사할 때, 슬픔에 가득 찬 한 남자로 그리지 마라. 장차 올 세대들은 우리의 기쁨으로 인한 광채, 우리의 선한 뜻으로 인한 낙천적 기질, 그리고 우리의 선한 재치로 인한 영감도 또한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변환시키는 그 힘으로 전달되는 좋은 소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우리의 종교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의미들로 약동하고 있다. 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며, 그들의 가슴 안에서 언제까지나 더욱 기쁨을 향유하려고 구속되어 있을 것이다. 하느님을 확신하는 자는 누구나 증가하는 행복을 체험할 것이다.

159:3.11 (1766.7) 거짓된 동정심의 불안전한 소도구에 기대려는 것을 피하라고 모든 믿는 자들을 가르쳐라. 너희가 자아-연민을 탐닉하는 것에서는 강한 성격을 개발해 낼 수 없다; 비참한 불행을 함께 하는 단순한 동료관계의 기만적인 영향을 피하기를 정직하게 애쓰라. 삶의 시련 앞에 단지 건성으로 일어서 있는 소심한 혼을 가진 자들에 대한 과도한 연민을 자제하고, 용감하고 용기있는 자들에게 동정심을 펼쳐라. 단 하나의 투쟁도 없이 자신들의 곤경 앞에 드러누워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제공하지 말라. 단지 그들도 보답으로 너희에게 동정할 수도 있듯이 단순히 너희 동료에게 동정을 베풀지 말라.

159:3.12 (1766.8) 내 자녀들이 일단 신성한 현존에 대하여 확신을 하는 자아-의식적이 되면, 그러한 신앙은 마음을 확대시키고, 혼을 고귀하게 하며, 개인성을 강건하게 하고,

행복을 증강시키며, 영 인식을 더욱 깊게 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 받는 힘을 강화시켜 준다.

159:3.13 (1767.1)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것으로서 시간의
우연한 사고나 일상적인 자연의 재앙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라. 복음을 믿는
것이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줄 것은 아니지만, 곤경이
너를 덮칠 때에 너희가 반드시 두려움없이 있게 되리라
보장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과감하게 나를 믿고 그리고
전심으로 내 뒤를 따라서 나아가려 한다면, 그렇게
행함으로써 너희는 곤경으로 향하는 그 확신찬 통로의
길에 가장 확실하게 들어설 것이다. 나는 역경의 바다로
부터 너희를 건지리라 약속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의 모든 것에 두루 내내 너희와 함께 갈 것을 약속한다.

159:3.14 (1767.2) 믿는 이 무리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기까지
예수는 더욱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다. 이 말씀들을 들었던
자들은 그것들을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을 선도하기 위하여 종종
다시 이야기하곤 하였다.

제 4 장. 나다니엘과의 대화

159:4.1 (1767.3) 그 다음에는 예수가 나다니엘과 그의 일행들이 수고하고 있는 아빌라로 가셨다. 나다니엘은 인정된 히브리 경전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듯이 보이는 예수의 어떤 발언들로 인하여 많이 고민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날 밤에, 질문과 대답으로 일관된 통상적인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나다니엘은 예수를 아무도 없는 다른 곳으로 모시고 가서 물었다: “주(主)여, 제가 성서를 진리로 알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저는 당신께서 거룩한 기록들 중에서 일부분—제가 보기에도 가장 훌륭한 부분—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아 왔으며, 아브라함과 모세의 시대 이전에도 하늘에 계신 하느님과 함께 있어 온 하느님 말씀을, 바로 그것이 율법의 말씀들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랍비들의 가르침을 거부한다고 추측합니다. 성서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당황하고 있는 사도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159:4.2 (1767.4) “나다니엘아, 네가 옳게 판단하였다. 나는 랍비들이 하는 것처럼 성서를 대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네 형제들에게 네가 이것들을 관계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 문제에 대해 너에게 이야기하려고 한다. 모세의 율법의 말씀들과 성서의 가르침들은 아브라함 이전에는 없었다. 다만 최근에 성서가 모아져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처럼 되었다. 그 글들이 유대인들의 높은 사고와 열망들 중에 가장 훌륭한 것들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반면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격이나 가르침을 대변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아주 먼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왕국 복음을 위하여 주워 모아진, 보다 나은 저들 진리 가르침 중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다.

159:4,3 (1767.5) “이들 가르침은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그들 중에 일부는 거룩한 사람들이었고, 또 어떤 자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이 책들의 가르침들은 그들이 기원된 그 시대의 깨우침에 대한 시각과 범위를 나타낸다. 진리를 계시한다는 점에서, 전반부보다는 후반부가 더 신뢰할 만하다. 성서가 결점이 있고 인간으로부터 기원된 것이기는 하지만, 오류를 범하지 말라, 그것은 오늘날 모든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종교적 지혜와 영적 진리에 대한 최고의 모음집을 이루어놓았다.

159:4.4 (1767.6) 이 책의 많은 부분은 그 책이 지닌 이름의 사람에 의해 쓰인 것이 아니지만, 그 사실 때문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가치가 떨어질 수는 없다. 만일에 요나에 관한 기사가 사실이 아니었다 해도, 심지어는 요나라는 사람이 전혀 있지 않았다 해도, 이 이야기에는 여전히 깊은 진리가 있으며, 소위 이방이라고 불리는 니느웨에 대한 하느님의 그 사랑은, 동료들 사랑하는 자들의 눈에는 조금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성서는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신성하며, 그들은 이 글 속에 정의(正義), 진리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그들의 가장 높은 개념들을 기록해 놓았다. 성서는 진실을 매우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오늘날 너희가 가르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하늘에 계신 하느님, 내가 와서 모든 세계에 나타내고자 하는 사랑의 하느님에 대하여 그릇되게 설명하는 많은 부분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 것이다.

159:4.5 (1768.1) “나다니엘아, 사랑의 하느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그들의 적을 모두—남녀노소를 막론하고—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였다는 성서의 기록을 한 순간도 결코 믿으려 하지 말라.

그러한 기록들은 사람들의 말이며, 매우 거룩한 사람들의 말도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도 아니다. 성서는 그것을 지어낸 사람들의 지적, 도덕적, 영적 지위를 늘 반영해 왔으며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선지자들이 사무엘로부터 이사야에 이르는 그들의 기록을 만들어 가면서 야훼 하느님에 대한 개념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화 발전해 간 것을 네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성서가 종교적인 가르침과 영적 안내를 위한 것임을 너는 꼭 기억하라. 성서는 역사가나 철학자들의 작품이 아니다.

159:4.6 (1768.2) "성서 기록이 절대로 완전하다는 것과 그리고 그 가르침이 틀림없다는 잘못된 관념이 가장 통탄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예루살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이 성스러운 글들이 잘못 해석되어 혼란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제 저들은, 왕국 복음의 더욱 새로운 가르침에 저들이 저항하기를 굳게 결정하면서, 성서가 영감 받았다는 교리 그리고 그 해석상의 오류의 그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 나다니엘아, 아버지는 진리에 대한 계시를 어느 한 세대 또는 어느 한 민족에게만 제한시키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 하거라.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해 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많은 사람들이 성서가 완전하다는 이 교리들 때문에 혼동되고 낙심될 것이다.

159:4.7 (1768.3) “진리에서의 권위는 그 살아있는 현시활동 속에 깃들어 있는 바로 그 영이고, 어떤 다른 세대의 다소 희미하면서도 영감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옛 사람 중에 성스러운 사람들이 설혹 영감을 받고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들의 말들도 똑같이 영적으로 영감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왕국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떠난 후에 내 가르침에 대한 너희의 다양한 해석의 결과로 인하여 가지각색의 진리 논쟁자 분파로 속히 나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세대에 있어서는 기록을 만드는 것을 피하고 이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159:4.8 (1768.4) “나다니엘아, 내 말을 잘 기억하라. 인간 본성이 닿은 것에는 틀림없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신성한 진리가 참으로 빛을 발하게 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상대적으로 순수할 뿐이며 부분적인 신성이 있을

뿐이다. 창조체는 틀림없는 것을 갈망하지만, 오직 창조자들만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

159:4.9 (1768.5) “그러나 성서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실수는 오직 그 민족의 현명한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감히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신비의 책이라고 봉해 버리는 교리에 있다. 신성한 진리에 대한 계시는 인간의 무지, 완고함, 그리고 편협 되고 웅졸한 마음에 의해서만 봉해지는 것이다. 성서가 발하는 빛은 오직 선입관에 의해서 약해지며 미신적 습관에 의해 어두워진다. 신성함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이 종교가 상식적인 보호수단이 되는 것을 방해하여 왔다. 과거에 쓰인 성스러운 글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의 정직한 혼들이 복음의 새로운 빛, 다른 세대에서 하느님을-아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159:4.10 (1769.1) “그러나 무엇 보다 가장 슬픈 점은 이 전통주의의 존엄함을 가르치는 선생들의 일부가 바로 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성서의 한계성을 거의 충분히 납득하고 있으면서도, 도덕적으로는 비겁하며,

지적으로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들은 거룩한 글들에 관하여 진상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막아야 한다는 것에 더욱 즐겨 빠져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글들을, 다른 세대의 하느님을-아는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 지혜와 종교적 영감 그리고 영적 가르침의 저장고로서 간청하는 대신, 성서를 왜곡하고 일상생활의 노예로 만드는 세부사항과, 영적이 아닌 일들의 권위에 대한 안내서로 만들면서 그릇된 길로 빗나게 한다.”

159:4.11 (1769.2) 나다니엘은 주(主)의 분명한 말씀에 깨우쳐졌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 대화를 깊은 상념에 잠겨서 심사숙고하였지만, 예수가 상승한 이후까지 이 대화 내용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 후에도 주(主)가 설명한 모든 이야기를 전하기에 두려워하였다.

제 5 장. 예수의 종교에서의 적극적 본성

159:5.1 (1769.3) 야고보가 사명활동하는 필라델피아에서, 예수는 왕국 복음의 적극적 본성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하였다. 주(主)는 성서의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들보다 더 많은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가장

좋은 영적 음식으로 자기 혼을 먹이라고 청중들에게 훈계하였는데, 말씀하는 도중에, 야고보가 끼어들어 물었다: "주(主)여, 우리의 개인적 향상에 보다 적당한 구절들을 성서에서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좋다. 야고보야, 네가 성서를 읽을 때에 영원히 참되고 신성하게 아름다운 다음과 같은 가르침들을 찾아보라:

159:5.2 (1769.4) "오 주님. 내 속에 정결한 가슴을 창조하소서.

159:5.3 (1769.5)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59:5.4 (1769.6) "네 자신을 사랑함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159:5.5 (1769.7) "이는 나, 주님 너의 하느님이 네 오른 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59:5.6 (1769.8) "나라들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159:5.7 (1769.9) 이것은 예수가 따르는 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또는 새로운 왕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 삽입하기 위하여, 날마다 히브리 경전의 진수를 인용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종교들은 하느님을 사람과 비슷한 존재로 생각하도록 암시하지만, 예수는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보살핌을, 독립하지 못한 자기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버지가 염려하는 것에 비유하였으며, 이 가르침을 그의 종교에 주춧돌로 삼았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아버지신분 교리는 반드시 사람의 형제신분 실행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하느님께 경배 드리는 것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그의 종교의 전부이며 실천적인 내용이다. 예수는 유대교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취하셔서 왕국 복음의 새로운 가르침 안에 옮겨놓았다.

159:5.8 (1769.10) 예수는 적극적인 행동의 정신을 유대교의 수동적인 교리 속에 적용시키셨다. 예수는, 의식을 지키는 요구를 따르는 부정적인 순종 대신에, 그의 새 종교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명하였다. 예수의 종교는 단지 믿는 것에 있지 않고, 복음이 요구하는 것을 실재로 행하는 것에 있다. 예수는 그의 종교의 근본이 사회에 대한 봉사에 있다고 가르치지는 않았고, 오히려 사회봉사는 참된 종교정신을 소유함을 나타내는 확실한 효과중의 하나라고 가르쳤다.

예수는 성서의 좋은 반쪽을 이용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고, 반면에 보다 뒤 떨어진 부분들은 사용하기를 거부하였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위대한 교훈은 “너희는 네 민족의 자녀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서의 기록으로부터 예수가 취한 것이다. 예수는 이 성서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수용하였지만, 부정적인 부분은 거부하였다. 예수는 부정적이거나 순전히 소극적인 무저항을 마찬가지로 더욱 반대하였다. 예수가 말씀하기를 “원수가 네 한 쪽 뺨을 칠 때 소극적으로 멍하니 서 있지만 말고 적극적인 태도로 다른 뺨을 돌려 대라; 다시 말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네 형제를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더욱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라.” 예수는 따르는 자들에게 일생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른 뺨을 돌려 대든지 또는 그것을 상징할만한 어떤 행동이든지, 숭선하는 것이 요청되며, 믿는 자임을 나타내는 활기차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용기 있는 개인성 표현이 요구된다.

예수는, 악에 대하여 무저항적인 사람을 이용하려고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주는 모욕에, 소극적으로 굴복하는 실천 관행을 권유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선(善)으로 악을 효과적으로 이기게 될 때까지, 악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하되, 현명하고 기민하게 하라고 당부하였다. 가장 고약한 악보다 진실된 선이 반드시 더 강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주(主)는 정의에 대한 적극적인 기준을 가르치셨는데: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르기 위해 매일 주어지는 의무를 온전히 감당하라.” 그리고 주(主) 자신이, “그는 부지런히 선한 일을 행하였다.”는 말 그대로 사셨다. 복음의 이 측면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후에 말씀한 많은 비유들에 의하여 잘 표현되었다. 예수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인내심으로 의무를 이행하라고 훈계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하느님의 왕국 안에서 그들의 인간 책임과 신성한 특권을 충분히 채우기까지 힘과 열정을 가지고 살라고 가르치셨다.

예수가 사도들에게, 어떤 사람이 겉옷을 부당하게 벗겨가거든 다른 옷도 벗어주라고 가르치셨을

때, 글자 그대로 두 번째 겉옷을 의미하였기 보다는 오히려, 보복하라고 충고하는 옛 가르침—“눈에는 눈으로”—의 어떤 것 대신에 그릇된 행동을 한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일을 하라는 관념으로서 설명한 것이었다. 예수는 보복하려는 생각을 싫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태도로 고난을 참아내는 자 또는 불공정의 희생자가 되는 관념을 아주 싫어하였다. 이 경우에 있어서 예수는 악에 맞서서 저항하고 싸우는 세 가지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

159:5.12 (1770.4) 1. 악을 악으로 갚음—적극적이지만 불의한 방법.

159:5.13 (1770.5) 2. 불평이나 저항 없이 악을 견뎌—순전히 소극적인 방법.

159:5.14 (1770.6) 3. 악을 선으로 갚음, 그 상황의 주인이 되도록 의지를 주장하고, 선으로 악을 정복함—적극적이며 의로운 방법.

159:5.15 (1770.7) 사도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주(主)여, 만일 어떤 낫선 사람이 자기 짐을 1마일이나 지고 가도록 제게 강요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한편으로는 속으로 그 낯선 사람에게 심한 욕을 하면서, 벗어나려고 앉아서 한숨을 쉬지 말라. 그러한 소극적인 태도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 네가 행할 수 있는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거든, 적어도 네가 그 짐을 다음 일 마일에 나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불의한 그리고 신앙 없는 낯선 자에게 확실한 도전이 될 것이다.”

159:5.16 (1770.8)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고 그들의 나쁜 짓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하느님에 대하여는 많이 알고 있었으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고, 죄인들을 찾는데 솔선하며, 그들을 찾았을 때 기쁨을 향유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시는 하느님에 대하여는, 사람들은 예수가 오시기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예수는 종교에 있어서의 이 적극적인 내용의 말씀을 그의 기도에도 적용하였다. 그리고 소극적인 황금률을 인간 공정성에 대한 적극적 훈계로 바꾸셨다.

159:5.17 (1771.1) 예수는 가르치실 때에 세부사항들을 이야기하여 산만하게 되는 것을 항상 의도적으로 피하였다. 예수는 화려한 문체의 말을 멀리하였으며 단순히 시적인

표현으로 말장난 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예수는 설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소금, 누룩, 고기잡이, 어린 아이 등과 같은 많은 단어들의 현재 통용되는 의미를 바꾸어 사용하였다. 순간을 영원과 대비시킨 것 외에도 많은 경우에 대조법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의 묘사 방법은 인상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가 예를 들어 가르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자연스러움에 있었다. 예수는 종교의 철학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가져 왔던 것이다. 그는 새로운 통찰력과 새로운 애정의 증여와 함께, 기본적 요소가 되는 혼이 필요하다는 것을 묘사하였다.

제 6 장. 마가단으로 돌아감

^{159:6.1 (1771.2)} 데카폴리스에서의 네 주간 동안의 전도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수 백 명의 사람들이 왕국에 받아들여졌고,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즉각적인 예수의 개인적 현존에서의 영감이 없이도, 그들의 일을 감당하였다는 점에서 값진 체험을 하였다.

^{159:6.2 (1771.3)} 9월 16일, 금요일에, 모든 사명활동자들은 미리 지시되었던 대로 마가단 공원에 모두 모였다. 안식일이

되자, 왕국의 일을 확장하려는 앞으로의 계획이 한껏 논의되었던 백이 넘는 신자들의 회의가 소집되었다. 다윗의 메신저들이 와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그리고 인접한 지역들에 퍼져 있는 믿는 자들이 잘 있는가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다.

159:6.3 (1771.4) 이 때 예수를 따르는 자들 대부분은 메신저 무리단의 봉사의 굉장한 가치를 잘 알지 못하였다. 그 메신저들은 팔레스타인 전역의 신자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예수 그리고 사도들과 접촉이 유지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암울한 기간 동안 자금을 모으는 역할도 담당하였는데, 이 돈은 예수와 그의 연관-동료들의 양식을 위하여서도 씌어졌지만, 더 나아가서는 열 두 사도들과 열 두 전도자들의 가족들을 돕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159:6.4 (1771.5) 이 무렵에 아브너는 그의 활동 근거지를 헤브론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겼으며, 새로 옮긴 장소는 다윗의 메신저들의 본부이기도 하였다. 다윗은 예루살렘과 벳세다 사이에 밤을 새워 교대식으로 봉사하는 메신저를 두었다. 이들은 매일 저녁에 예루살렘을 떠나 달려갔으며, 시카와 스키토폴리스에서

교대하고,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에 벧세다에 도착하곤 하였다.

159:6.5 (1771.6) 예수와 그의 일행들은 이제 왕국을 위한 사명활동의 마지막 신(新)시대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기 전에, 일주일 동안 휴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것이 마지막 휴식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페레아 사명이 설교 그리고 전도 운동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는 이것은 곧바로 그들의 예루살렘 도착 때까지 이어졌으며 그리고는 예수가 이 땅에서의 삶의 막을 내리는 에피소드를 연출하는 때까지 바로 이어졌다.

제 160 편 알렉산드리아의 로단

160:0.1 (1772.1) 9월 18일 일요일 아침, 안드레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계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나다니엘과 도마를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가족을 만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하여 집으로 갔다. 이 일주일 동안 예수는 거의 아무런 방해 없이 휴식을 취하였지만, 나다니엘과 도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로단이라 하는 어떤 그리스 철학자와 토론하기 위하여 바쁜 시간을 보냈다. 이 그리스인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명을 수행하였던 아브너의 연관-동료들 중의 하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최근에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로단은 자신의 삶의 철학과 예수의 새로운 종교적 가르침을 조화시키는 과제에 진지하게 몰두하고 있었으며, 주(主)가 자신에게 이 문제들에 대하여 얘기해 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마가단에 왔다. 또한 그는 예수나 그의 사도들로부터 복음에 대한 원래 그대로의 그리고 권위 있는 해석본을 확보하기 원했다. 주(主)는 로단과 그러한 토론에 들어가기를 사양하였지만, 그를 정중하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나다니엘과 도마에게 그가 하고 싶어 하는 모든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답례로 그에게 복음에 대하여 말해주어야 한다고 지도하였다.

제 1 장. 로단의 그리스 철학

160:1.1 (1772.2) 월요일 이른 아침에, 로단은 나다니엘과 도마 그리고 마침 마가단에 있었던 스물네 명가량의 신자들 무리에게 열 번의 연속된 강연을 하였다. 이들 얘기를 응축하고, 병합하여, 현대의 문체로 다시 서술하면,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고찰할 수 있다:

160:1.2 (1772.3) 인간의 생명은 세 가지의 큰 본능적 욕구—충동, 욕망, 애착—를 담고 있다. 강인한 성격, 당당한 개인성은 생명의 본능적 충동을 삶에서의 사회적 기술로 전향시킴으로서, 현재의 욕망을 영속적인 달성이 가능한 더욱 높은 소망들로 변환시킴으로서만 오직 얻어지며, 한편으로는 실존의 평범한 애착을 자신의 전통적이고 기존의 관념으로부터 미(未)탐험 관념과 미(未)개척 이상에서의 더욱 높은 영역으로 옮겨져야만 얻어지는 것이다.

160:1.3 (1772.4) 문명이 더욱 복잡해질수록 삶의 기술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사회적인 관습의 변화가 더욱 빨라질수록 성격 개발의 과업도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만일 진보가 계속된다면 매 열 세대마다 생활의 새로운 기술은 배워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재능이 매우 발달하여 사회의 복잡성을 더욱 조속히 가중시킨다면, 삶의 기술은 다시 습득해야 하는 기간은 더욱 짧아져서 매 세대마다 그리해야 될지도 모른다. 만약에 삶의 기술에서의 진보가 실존(實在)의 기법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인간성은 다시 단순한 삶의 충동으로 조속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성은 미성숙의 상태에

머무를 것이다; 사회는 충만한 성숙으로 자라가지 못할 것이다.

160:1.4 (1773.1) 사회적 성숙은 사람이 단순한 과도기적 현상으로서의 충족을 기꺼이 포기하려는 정도와, 영원한 목표를 향한 진보적인 전진의 더욱 풍성한 만족을 잘 제공하는, 그러한 달성을 위해 분투하는. 우월한 열망에 즐겁게 나서려는 사람들의 현재의 욕망과 동등하다. 그러나 사회적 성숙의 진정한 징표는, 이상적인 영적 실체의 미(未)개척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에 대한 탐험된 적이 없는 가능성을 추구함에서 나오는, 걱정을 일으키고 에너지가-요구되는 애착을 위하여, 기존의 믿음과 전통적 관념에서의 편안을-증진하는 애착의 기준 밑에서,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사는 권리를 기꺼이 버리고자 하는 태도이다.

160:1.5 (1773.2) 동물들도 생명의 충동에 훌륭하게 반응하지만,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물적인 충동으로 사는 체험밖에 하지 못할지라도, 오직 사람만이 삶의 예술을 달성할 수 있다. 동물들은 다만 맹목적이며 본능적인 충동만을 알 뿐이다; 사람은 능히 선천적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충동을 초월할 수 있다. 사람은 지능적 예술의 높은 경지, 심지어는 초월적 기쁨과 영적 황홀의 경지에서 살고자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동물들은 일생의 목적에 대하여 그 어떤 질문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걱정이라는 것이 없으며, 자살하지도 않는다. 사람들 가운데에서의 자살은, 실존에서의 순전히 동물단계에서 그러한 인간 존재들이 솟아 나왔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인간 존재들의 탐구적인 노력이, 필사자 체험에서의 예술적 차원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동물들은 삶의 의미를 모르지만; 인간은 의미를 이해하고 가치를 인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들에 대한 의미도 인식한다.—인간은 통찰력을 자아-의식한다.

160:1.6 (1773.3) 사람들이 불확실한 논리와 모험적인 예술의 일생을 위하여, 본능적 갈망의 일생을 감히 버릴 때, 적어도 지성적 그리고 감성적 성숙의 어느 정도를 달성하는 시기까지는, 그들은 감성적인 피해—갈등, 불행, 불확실성—의 필연적 위험들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해야만 한다. 낙심, 염려, 게으름은 도덕적으로 미숙하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인간사회는, 개별적인

성숙의 달성과 종족의 성숙이 달성하는 것, 이 두 가지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성숙된 인간은 모든 다른 필사자를 즉시 온정의 느낌과 너그러운 감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성숙된 사람은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사랑과 생각으로 미숙한 자들을 바라본다.

160:1.7 (1773.4) 성공적인 삶이란 공통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뢰할만한 기법들을 습득하는 예술에 불과하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그 어려움을 알아내고, 그 문제를 분리시키며, 정직하게 그 본질과 비중을 인지하는 것이다. 가장 큰 오류는, 일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깊은 두려움을 자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시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오래-간직된 자부심의 감축, 질투심의 인정, 또는 깊숙하게-자리잡은 편견의 포기를 수반할 때, 보통 사람들은 안전에서의 옛 환상과 안심에서의 오래-간직된 거짓 감정에 매달리기를 더 좋아한다. 오직 용감한 사람만이 진지하고도 논리적인 마음이 발견한 것을, 기꺼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두려움 없이 마주한다.

160:1.8 (1773.5) 어떤 문제에 대한 현명하고 효력적인 해결은 마음이, 문제 자체에 해법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가꾸며 나가도록 하는 실재적 요소들을 냉정하게 조사하는 것을 방해할지도 모를 편견, 정열 그리고 순전히 개인적인 그 밖의 모든 선입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을 요구한다. 일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용기와 성실성이 필요하다. 오직 정직하고 용감한 개별존재만이, 당황하게 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삶의 미로를 통과하면서, 두려움 없는 마음의 논리가 인도하는 곳으로 용감하게 따라갈 수 있다. 마음과 혼의 이러한 해방은 종교적 열정과 경계가 닿아있는 지능적 열심의 추진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어려운 물질적 문제들과 다양한 지적 위험들로 둘러싸인 목표를 추구하면서, 그 곳에서 사람을 기운차게 움직이게 하려면 위대한 이상의 매혹이 필요하다.

160:1.9 (1774.1) 너희가 일생의 어려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 동료들로부터 가슴에서 우러난 지지와 협조를 얻게 만들, 그 마음의 지혜와 개인성의 매력으로 갖추지 않으면 너희는 성공을 거의 기대할 수 없다. 동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설복시킬 수 있는지를 배우지

못한다면 현실적이든지 종교적이든지 아무 일에도 너희가 크게 성공할 희망은 없다. 너희는 다만 재치와 관대함을 가져야만 한다.

160:1.10 (1774.2) 그러나 나는 너희의 주(主)이신 예수로부터 가장 훌륭한 문제 해결 방법을 배웠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예수가 늘 행하고 또 너희들에게도 엄중하게 가르치셨던 것으로, 경건한 묵상을 위하여 고립되는 것이다. 자주 혼자 떠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제한 예수의 실천 관행 속에서 그 기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일상적인 삶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이며 영적 성질의 보다 높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개인성에서의 선천적인 손상을 보충하지는 않으며, 참된 정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의 부재(不在)를 보상하지도 않는다.

160:1.11 (1774.3) 혼자 따로 가셔서 삶의 문제들을 한동안 홀로 살펴보신다; 사회적인 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의 요구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혜와 힘을 새로이 저장하기 위해 애쓰신다; 신성과의 접촉을 의식하도록 전체 개인성을

실재적으로 복종시킴으로써 삶의 최극의 목적을
활성화하고 심화시키신다; 항상 변화하는 살아가는
실존의 환경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는 새롭고 훌륭한
방법들을 소유하고자 하신다; 보람되고 실제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통찰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자신의 개인적
태도의 생생한 재-구축과 재-조절을 달성하고자 하신다;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목적으로—너희의 주(主)께서
성실한 태도로 즐겨 하는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예수의 습관에 나는 큰 인상을 받았다.

160:1.12 (1774.4) 너희의 주(主)의 경배하는 실천 관행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완-휴식을 가져오며; 혼이 고무되도록 빛을
비추며; 자기 문제들에 과감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용기를
준다; 그리고 쇠약하게 하는 두려움을 없애 주는 자아-
납득을 가져 온다; 그리고 사람이 감히 하느님과-같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그를 무장시켜 주는, 신성과의 연합에
대한 의식을 가져 온다. 경배에서의 이완-휴식 또는
주(主)가 한 것과 같은 영적 교제는 긴장을 해소시키며,
갈등을 없애 주고, 개인성의 모든 자원들을 대단히

증강시켜 준다. 그리고 왕국 복음에 덧붙여진 이 모든 원리는 내가 이해하는 것과 같은 새 종교를 구성하고 있다.

160:1.13 (1774.5) 선입견은 혼이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린다, 그리고 선입견은 자기 동료 사람들의 모든 것을-포용하고 모든 것을-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원인을 찬미하는 데에 헌신하는 혼의 진지한 헌신으로만 없앨 수 있다. 선입견은 이기주의와 분리될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다. 선입견은 오직 자아-추구의 포기과 그리고 그 자리에 자아보다 위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성보다도 위대한 어떤 하나의 원인의 봉사에서의 만족에 대한 탐구—하느님을 향한 탐색, 신성의 달성—가 대치함으로써만 제거할 수 있다, 개인성이 성숙하였다는 증거는 최고로 그리고 가장 신성하게 실제인 그러한 가치들의 실현을 위하여 것처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인간 욕망의 변환으로 이루어져 있다.

160:1.14 (1774.6)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 속에서, 사회 계층이 진화하는 중에, 확립되고 고정된 운명의 목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인성의 안정성은 살아 계신 하느님을 무한한 달성의 영원한 목적지로서 발견하고 터득하였던

사람들에 의해서만 체험될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목적지를 유한한 시간으로부터 영원으로, 인간의 것으로부터 신성한 것으로 옮기는 데에는 그의 개심, 전환, 다시 태어남이 있어야 한다; 신성한 영의 자녀로 다시 창조되어야만 한다; 하늘의 왕국의 형제신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이 개념들이 부족한 모든 철학들과 종교들은 아직 미성숙된 상태이다. 내가 가르치는 철학은 너희가 전파하는, 장차 올 모든 세대들의 이상(理想), 그 성숙된 새로운 종교를 대표하는, 복음과 연결된다. 이러한 설명이 참된 것은 우리의 이상이 최종적이며 틀림없으며, 영원하며, 우주적이며, 절대적이며, 무한하기 때문이다.

160:1.15 (1775.1) 나의 철학은 진실한 달성의 실체들, 성숙의 목표를 수색하도록 나에게 충동을 주었다. 그러나 나의 충동은 무기력하였다; 나의 수색은 추진력이 부족하였다; 나의 탐색은 방향성구현에서의 확실성의 부재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다. 이들 결핍들은 예수의 새로운 복음에 의하여 통찰력의 향상, 이상의 제고(提高), 목표의 확립과 함께 풍성하게 공급되었다. 나는 이제 의심이나 불안함이 없이 전심으로 영원한 모험에 들어갈 수 있다.

제 2 장. 삶의 기술

160:2.1 (1775.2) 사람들이 같이 사는 데에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는 물질적 혹은 동물적인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영적 혹은 인간적인 방법이다. 동물들도 신호나 소리로 제한된 한도 내에서 서로 교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형태의 교통은 의미나 가치 또는 관념을 전달하지 않는다. 사람과 동물의 한 가지 차이점은 사람만이 의미, 가치, 관념 그리고 심지어는 이상들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상징들을 수단으로 하여, 그의 동료들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160:2.2 (1775.3) 동물들은 서로 관념을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성을 발현시킬 수 없다. 사람은 관념뿐만 아니라 이상을 동료들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성을 발전시킨다.

160:2.3 (1775.4) 사람에게 사회적인 관계적-연합을 통하여 문명을 이룩하게 하고 인간의 문화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의미들을 함께 나누고 교통할 수 있는 이 힘이다. 지식과 지혜는 누적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교통을 통하여 이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그 민족의 문화적 활동, 예술, 과학, 종교, 철학들이 발생한다.

160:2.4 (1775.5) 인간 존재들 사이에서의 상징적인 교통은 사회 집단들의 실재가 생성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모든 사회적 집단 가운데 가장 효력적인 것은 가족이며, 더 자세하게는 두 분 부모들이다. 개인적 애정은 이들 물질적 연합들을 함께 유지하고 있는 영적 결속력이다. 그러한 효력적인 관계는, 진정한 우정의 헌신에서 아주 풍부하게 묘사되는 그대로, 그렇게 같은 성(性)의 두 개인들 사이에서도 가능하다.

160:2.5 (1775.6) 우정과 상호 애정으로 이루어지는 이들 관계적-연합들은 그들이 삶의 예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아래와 같은 기본 요소들을 조장하고 촉진하기 때문에 사회화되어 가고 고상하게 되어간다:

160:2.6 (1775.7) 1. 상호적인 자아-표현과 자아-납득. 훌륭한 많은 인간들의 추진력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어 버린다. 정말로, 혼자 있는 것은 사람에게 좋지 않다. 어느 정도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은 인간 성격 개발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집에서 참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린이들의 정상적인 성격 개발은 온전히 성취될 수 없다. 성격은 단순히 마음이나 도덕보다도 더 큰 그 무엇이다. 성격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적 관계들 중에서 가장 효력적이고 이상적인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지적인 결혼생활에서의 서로간의 포옹 안에서 애정이 넘치고 그리고 납득하는 친구관계이다. 결혼은, 그 각가지 관계와 함께, 강한 성격을 개발하기에 필수불가결한 보다 높은 동기들과 귀중한 추진력들을 가져오도록 최상으로 설계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저하지 않고 가정생활을 찬미하는데, 왜냐하면 너희의 주(主)께서 새로운 이 왕국 복음의 주춧돌로서 아버지-아이의 관계를 현명하게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시간의 가장 높은 이상들을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 무엇에도 비길 데 없는 그러한 관계의 공동체는 너무나 가치가 있고 체험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 소유를 위해서라면 어떤 값, 어떤 희생, 또는 어떤 대가(代價)라도 치러야 한다.

160:2.7 (1776.1) 2. 혼들의 연합—지혜의 운용. 모든 인간은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개념과 다음 세계에 대한 어떤 환상을 곧 획득한다. 일시적인 실존의 관찰과 영원한 전망을

연합하는 것이 개인성 관계적-연합을 통하여 이제 가능해졌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통찰력을 많이 얻음으로써 그 영적 가치를 증강시킨다.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각각의 영적 재산을 모음으로써 혼을 풍성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똑같은 방법으로, 시야의 왜곡, 관점의 편견, 그리고 판단의 편협으로 희생자가 되는, 그 항상 존재하는 경향을 피할 수 있다. 두려움, 질투, 그리고 자만은 다른 마음들과의 친밀한 접촉을 통해서만 막을 수 있다. 나는 주(主)께서 너희를 왕국 확장을 위한 사명활동에 내 보내실 때 절대로 혼자서 가지 않도록 한 사실에 너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주(主)는 항상 너희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 그리고 지혜는 초(超)지식이기 때문에, 사회적 집단들이 작든지 크든지, 지혜와 연합할 때 모든 지식들을 서로 나누게 된다.

160:2.8 (1776.2) 3. 삶에 대한 열렬한 정성. 고립은 혼의 충전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경향이 있다. 동료들과의 관계적-연합은 삶에 대한 묘미를 새롭게 하는데 필수적이며 더욱 높은 차원으로 상승할 때 따라오는 인간 삶의 투쟁들 속에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우정은 기쁨을 강화하고 일생의 승리들을 더욱

영광스럽게 한다. 사랑이 있고 그리고 친밀한 인간 관계적-연합은 그 쓰라림의 많은 슬픔과 고초의 괴로움을 깨끗이 닦아 없애는 경향이 있다. 친구의 현존은 모든 아름다움을 강화하고 모든 선을 드높인다. 사람은 지적 상징들에 의해 친구들을 깊이 이해하는 수용능력을 촉진하고 커지게 할 수 있다. 인간의 우정에 대한 최고의 기쁨 중의 하나는 상상력이 서로 동조될 수 있는 이러한 힘과 가능성이다. 조화우주 신(神)에 대해 서로 충실한, 하나의 공동 전선에 전심으로 바쳐진 의식 속에 엄청난 영적 힘이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다.

160:2.9 (1776.3) 4. 모든 악에 대항하는 강화된 방어. 개인성 관계적-연합과 상호 애정이, 악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대비책이다. 어려움, 슬픔, 실망, 패배를 혼자서 견딜 때에는 더욱 고통스럽고 낙담이 된다. 연합 자체가 악을 정의로 변질하지는 않지만, 찌르는 아픔을 크게 줄어들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너희의 주(主)는 "슬퍼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 한다.—위로할 친구가 옆에 있다면. 너희가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살고, 그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너희의 복지와 향상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긍정적인 강한 힘을 얻을 것이다. 사람은 고독

안에서는 시들어간다. 인간 존재들은 시간의 일시적 활동행위만을 바라볼 때, 어김없이 낙심하게 된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분통이 터지도록 하찮은 것이 된다. 영원의 순환계를 어렴풋이 감지하기만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최선을 다하도록 영감을 받을 것이며 그의 안에 있는 최선이 그것의 최대한을 행하는데 도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이 그의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는 다른 이들의 선, 시간과 영원 안에 있는 그의 동료 거주자들의 선을 위하여 가장 사심-없이 사는 것이다.

160:2.10 (1777.1) 다시 말하지만, 영감을 주고 고상하게 하는 이러한 관계적-연합은 인간의 결혼 관계 속에서 이상적인 가능성을 발견한다. 정말로, 많은 것들이 결혼을 통하여 얻어지는데, 너무나도 많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 속에서 이러한 도덕적이며 영적인 열매를 맺는데 철저히 실패한다. 인간 성숙을 가져오는 이러한 우월한 동반보다는, 더 낮은 어떤 다른 가치들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이상적인 결혼은 오르내리는 정서와 변하기 쉬운 성적 이끌림보다는 더 안정된 어떤 것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 진실 되고 상호적인 개인의 헌신을 기초로 해야만 한다.

너희가 그러한 신뢰할만하고 효력적인 인간 공동체의 작은 단위들을 조성할 수가 있다면, 이것들이 모여 집단을 이룰 때, 세상은 장엄하고 영화로운 사회 구조, 필사자의 성숙된 문명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한 민족은 “땅에는 평화 사람들 가운데 선한 뜻”이라는 너희의 주(主)가 가지신 이상을 어느 정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한 사회가 완전하다거나 악으로부터 전반적으로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성숙으로 인한 안정에 도달할 것이다.

제 3 장. 성숙의 매혹들

160:3.1 (1777.2) 성숙을 향한 노력에는 일을 필요로 하며 그리고 일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물질적인 것들이 당연히 생각되겠지만, 주(主)께서 바로 말씀하였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 정상적인 육체와 상당히 좋은 건강을 받았더라도, 우리는 또한 사람의 수면하고 있는 영적 기세를 불러일으키는 자극으로 활동할 유혹들을 찾아야만 한다. 예수는 하느님께서 사람 속에 살아 계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여 이러한 신성과 무한의 혼에-묶여진 힘을 풀어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하느님, 그가 솟아올라

우리 자신의 혼을 일깨워 새롭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밖을 향해 이동하며 그리고는 수 없이 많은 다른 혼들을 깨우치고, 들어올리고, 축복하려는 목적으로 봉사할지도 모를, 그러한 하느님에게로 나아가도록 설득할 수 있겠는가? 너희의 혼속에 동면하고 있는 이 잠재 힘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최선으로 깨우겠는가? 내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감정적인 흥분은 이상적인 영적 자극이 아니라는 것이다. 흥분은 에너지를 증강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마음과 육체 모두의 힘을 소모시킨다. 그렇다면 이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너희의 주(主)를 바라보자. 우리들이 여기에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언덕에 오르셔서 힘을 취하고 계시다. 이 모든 문제의 비밀은 영적 교제, 경배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연관된 명상과 이완-휴식이다. 명상은 마음과 영이 접촉하도록 한다; 이완-휴식은 영적 접수성의 수용능력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약한 것을 강한 힘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자아의 마음을 하느님의 뜻으로 교체하는 이것이 경배를 이룬다. 적어도 이것이 철학자가 그것을 보는 길이다.

160:3.2 (1777.3) 이 체험들이 자주 반복되면 습관, 힘을-주는 경건한 습관으로 결정화되며, 그리고 그러한 습관은 결국에는 그들에게 영적 성격을 조성해 주며, 그러한 성격은 동료들에 의해 성숙한 개인성으로 인정받는다. 이 실천 관행들은 처음에는 어렵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습관적이 되면, 곧 편안해지고 시간이 적게 든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질수록, 그리고 문명의 애착이 배가 될수록, 하느님을-아는 개별존재들이 그들의 영적 에너지들을 보전하고 증강시키도록 고안된 그러한 보호적인 습성들을 형성할 필요성이 더욱 다급해지게 될 것이다.

160:3.3 (1778.1) 성숙해지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계속 변화하는 환경(環境)에 대한 사회적(社會的) 집단들의 협조적(協調的)인 적응이다. 성숙되지 못한 개별존재는 자기 연관-동료들에 대하여 반목을 키우며; 성숙된 사람은 자기 친구들에게 가슴에서 우러난 협조를 하여 일생의 노력에 대한 여러 배의 결실을 얻는다.

160:3.4 (1778.2) 나의 철학은, 정의(正義)에 대한 나의 개념을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내가 싸워야만 할 때가

있다고 말하지만, 반면에 주(主)는 개인성에서의 보다 성숙된 유형으로써, 재치와 관용의 우월하고 매력 있는 기법으로 쉽고도 은혜롭게 똑같은 승리를 얻으실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정의(正義)를 위하여 싸울 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승리자와 패배자 둘 모두 좌절을 체험한다. 나는 주(主)가 바로 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 “잠긴 문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을 때, 현명한 자는 그 문을 부수기보다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려 할 것이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단지 자기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확신하려고 싸움에 빠지곤 한다.

160:3.5 (1778.3) 이 새로운 왕국의 복음은 더욱 높은 삶을 위한 하나의 새롭고도 더욱 값진 격려를 준다는 점에서 삶의 예술에 엄청난 봉사를 제공한다. 그것은 운명의 새롭고도 드높여진 목표, 최극적 일생 목적을 제시한다. 그리고 실존의 영원하고 신성한 목표에 대한 이들 새로운 개념들은 그 스스로가, 사람의 더욱 높은 본성 안에 거주하고 있는 바로 그 최선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초월적 자극이다. 지능적 생각의 모든 산꼭대기에는 마음을 위한 이완-휴식, 혼을 위한 강한 힘,

영을 위한 교제가 발견되도록 되어 있다. 높은 삶의 그러한 유리한 지점으로부터, 사람은 생각의 낮은 차원—염려, 질투, 시기, 원한, 성숙되지 못한 개인성의 자부심—에서의 물질적 짜증스러움을 초월할 수 있다. 이처럼 높이 상승하는 혼들은 삶의 사소한 일들의 역류시키는 갈등들의 군집으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구원하며, 그리하여 영 개념과 천상의 교통의 더욱 높은 흐름의 의식을 달성하려고 자유롭게 된다. 그러나 일생 목적은 쉽고 그리고 과도기적인 달성을 추구하는 유혹으로부터 부지런히 수호되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일생 목적은 광신주의의 재앙을 일으키는 위협들에 면역성을 갖추기까지 육성되어야만 한다.

제 4 장. 성숙의 균형

160:4.1 (1778.4) 너희는 영원한 실체들을 달성하려고 성실히 목표를 삼고 있지만, 현세적인 삶에 필수적인 것들도 준비해야만 한다. 영이 우리의 목적지인 반면, 육체는 사실이다. 삶의 필수품들이 우연히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위하여 영리하게 일해야만 한다. 일생에 있어서 두 가지의 주요 문제는: 현세적인 삶을 이루어 가는 것과 영원한 생존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삶을 이루어가는 문제에서 참으로 이상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하다. 이것들은 둘 모두 매우 개인적 문제들이다. 참 종교는 개별존재로부터 분리되어 작용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160:4.2 (1778.5) 내가 보는 견지에서 현세적인 일생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60:4.3 (1778.6) 1. 육신적으로 강건함

160:4.4 (1778.7) 2. 분명하고 깨끗한 생각

160:4.5 (1778.8) 3. 힘과 기술

160:4.6 (1778.9) 4. 부—일생에서의 필요한 물품들

160:4.7 (1778.10) 5. 좌절을 견디는 힘

160:4.8 (1778.11) 6. 문화—교육과 지혜

160:4.9 (1779.1) 육신의 건강과 능력에 관한 물리적 문제들일지라도 우리 주(主)가 가르친 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잘 해결될 수 있다: 사람의 육체와 마음은 하느님들의 선물, 사람의 영이 되는 하느님의 영이 거하는

장소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물질적인 것들과 영적
실체 사이의 중재자(仲裁者)가 된다.

160:4.10 (1779.2) 일생에서 바람직한 것들을 자신의 몫으로
확보하는 데에는 지능이 필요하다. 자신의 일상생활
활동에서 신실하기만 하면 재물의 보상이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적으로 실수하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
또는 우연히 부를 획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세적인
일생의 물질적 보상은 어떤 확실한 잘 조직된 경로 안에서
흐르는 것이 발견되며, 이 경로들에 접속하는 자들만이
그들의 현세적인 노력에 대하여 좋은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 할 수 있다. 고립되거나 개별적인 경로들 속에서 부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모두 결국 가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계획이 세계적인 번영에 필수적인
것이다. 성공은 자기 일에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물질적 부의 어느 한 경로에서 한 부분으로 활동해야 한다.
만일 너희가 현명하지 못하면, 너희가 일생동안 헌신적인
일생을 살아도 물질적인 보상이 없을 수 있다; 만일 너희가
부의 흐름으로부터 우연히 수익을 얻었다면, 너희의
동료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치 속에 빈둥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160:4.11 (1779.3) 능력은 선천적이지만 한편, 기술은 습득하는 것이다. 어떤 한 가지를 숙달될 정도로 잘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일생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기술은 만족한 삶의 실제 근원 중의 하나이다. 할 수 있는 능력이란 선견(先見), 멀리 내다보는 시야를 지닌 재능을 뜻한다. 정직하지 않은 성취의 그 유혹하는 보상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정직한 노력에 선천적으로 들어있는, 그 훗날의 보상을 위하여 기꺼이 수고하라. 현명한 자는 수단과 목적을 구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때때로 미래에 대한 과도한 계획이 그 자체의 높은 목적을 좌절시킨다. 즐거움을 찾는 자로서, 너희가 즐거움의 소비자인 것처럼, 항상 그러한 생산자가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160:4.12 (1779.4) 너희가 자신의 기쁨과 계몽을 위해 뜻대로 회상할 수 있는, 강함을-주고 가치를-지닌 일생의 에피소드들을, 성스러운 믿음으로 지니도록 너희의 기억을 단련시켜라. 그리하여 너희들 자신 속에 그리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아름다움(美), 선(善), 그리고 예술적 장관의 저장 전시관을 구축하여라. 그러나 모든 기억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비할 데 없는 우정을 나눈 위대한

순간에 대한 보배로운 회상이다. 그리고 이 모든 기억 속의 보배들은 영적 경배의 해방하는 손길 밑에서 가장 귀중하고 드높이는 효력을 방출한다.

^{160:4.13 (1779.5)} 그러나 만일 너희가 실패를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삶은 현실적 실존의 짐이 될 것이다. 좌절에는 고귀한 혼이 반드시 습득하는 어떤 예술이 들어있다; 너희는 당당하게 지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너희는 실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에 결코 주저하지 말라. 속이는 미소와 낙천적인 태도로 애써 실패를 감추려 하지 말라. 성공을 공언하는 것은 항상 듣기 좋지만, 마지막 결과는 끔찍하다. 그러한 기법은 직접적으로 비현실의 세계를 창조하도록 이끌고 또한 궁극적 망상의 필연적 파멸로 이끌어 간다.

^{160:4.14 (1779.6)} 성공이 용기를 낳고 자신감을 증대시켜 주기는 하지만, 지혜는 오직 자기 자신의 실패 결과에 대한 조절의 체험으로부터 나온다. 실체보다 낙관적 환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지혜롭게 될 수 없다. 오직 사실을 마주보고 그것들을 이상에 맞게 조절하는 자만이 지혜를 성취할 수 있다. 지혜는 사실과 이상을 모두 포용하며,

그리하여 철학의 불모의 두 극단—사실을 거부하는 이상주의를 가진 자와 영적 전망이 결여된 물질주의자—으로부터 그것에 빠져있는 자들을 구해 준다. 성공에 대한 계속되는 거짓 환상의 도움에 의해서 일생의 투쟁을 겨우 유지하는 소심한 혼들은 궁극적으로 자기들의 환상의 세계에 대한 꿈에서 깨어남으로서 결국 실패를 당하고 패배를 체험하게 되어 있다.

160:4.15 (1780.1) **최극 영향을 미치는 긴 안목의 종교적 통찰력은 실패에 대처하고 패배에 적응하는 이 일에서 생긴다.** 우주를 탐구하려는 영원한 탐험에 동참하여 하느님을-찾는 사람이 체험하는 것들 중에서, 실패는 다만 하나의 교육적 에피소드—지혜 습득을 연마하는 실험—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패배는 다만 우주 실체의 높은 차원을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에 불과하다.

160:4.16 (1780.2) **하느님을-추구하는 사람의 생애는, 현세의-일생 전체가 실패에 매몰된 것으로 나타난다**해도, 제시되는 일생의 실패 각각이 지혜로운 문화와 영적 성취를 낳는다면, 영원의 빛 안에서 볼 때는 하나의 위대한

성공임이 입증될 것이다. 지식, 문화 그리고 지혜를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그것들이 일생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방대하게 서로 다른 영적 가치들을 나타낸다; 지혜는 언제까지나 지식을 지배하고 항상 문화를 영화롭게 한다.

제 5 장. 이상(理想)의 종교

160:5.1 (1780.3) 너희의 주(主)가 인간의 참된 종교를 개별존재의 영적 실체체험으로 간주한다고 너희는 말하였다. 나는 종교를, 어떤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도 충성과 헌신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중요시하는 어떤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그의 체험으로 간주하였다. 이런 점에서 종교는, 실체의 이상들에 대한 우리의 최고 개념을 나타내는 것과, 영적 달성의 영원한 가능성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가장 멀리 도달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최극 헌신을 상징화한다.

160:5.2 (1780.4) 사람들이 종족, 국가 또는 민족에 대한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에 반응할 때,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집단 밖에 있는 자들은 참으로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충성심의 대상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항상 바라본다. 종교는 단순히 지적인 믿음이나 철학적인 이론의 문제가 결코 될 수 없으며; 종교는 항상 그리고 언제까지나, 일생의 상황에 대한 반응 양식이다; 행위의 일종이다. 종교는 우리들이 우주적으로 숭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실체에 겸손히 향하는 생각, 느낌, 그리고 행동을 포용한다.

160:5.3 (1780.5) 만일에 어떤 것이 너희의 체험 속에서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면, 너희들 자신이 이미 그 종교의 활발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 자아-명백한데,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 종교의 최극개념을 모든 사람, 모든 우주 지능 존재들이 경배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너희의 종교의 적극적이고 사명을 가진 전도자가 되지 못한다면, 너희가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 오로지 전통적인 믿음이거나 단순한 지적 철학 체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너희는 자아-기만에 있는 것이다. 만일 너희의 종교가 영적 체험이라면, 너희의 경배 대상은 너희의 모든 영성화된 개념들의 우주 영 실체이자 그리고 이상이어야만 한다. 두려움, 감정, 전통, 그리고 철학에 기초하고 있는 모든 종교들을 나는 지적 종교라고 부르며,

반면에 영적 체험에 기초하는 종교들을 참 종교라고 부를 수 있다. 종교적 헌신의 대상은 물질적 또는 영적이거나, 진실된 또는 거짓된 것이거나, 실제이거나 또는 실체가 아니거나, 인간적 또는 신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들은 선하든지 또는 악할 수 있다.

160:5.4 (1780.6) 도덕과 종교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도덕의 체계들은 경배의 대상을 터득함으로써 종교가 될 수 있다. 종교는 충성심과 최극 헌신에 대한 우주적 호소력을 잃어버림으로써 철학 체계 또는 도덕의 규범으로 진화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물질, 존재, 상태 또는 실존의 계층, 혹은 종교적 충성심의 최극 이상을 구성하는 달성의 가능성,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의 종교적 헌신을 받는 자, 이것이 하느님이시다. 영적 실체에 대한 이 이상(理想)에 붙여지는 이름이 무엇이든지, 그는 하느님이시다.

160:5.5 (1781.1) 참 종교의 사회적인 특징은 개별존재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모시키는 사실들 속에 있다. 종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상, 곧 문명에서 가장 성숙된 제도들의 가장 높은 사회적 관습 안에서 체현되어 있는 그런 윤리와 도덕의 알려져 있는 표준들을 훨씬 초월하는,

그러한 이상이 실존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종교는 발견되지 않은 이상들, 아직 탐험되지 않은 실체들, 초인간적 가치들, 신성한 지혜, 그리고 참된 영의 달성으로 뻗쳐 이른다. 참 종교는 이러한 것 모두를 성취한다; 그 외의 다른 모든 믿음은 그 이름의 가치가 없다. 영원한 하느님에 대한 최극의 그리고 숭고한 이상이 없이는, 너희는 참된 영적 종교를 가질 수 없다. 이 하느님이 없는 종교는 하나의 사람의 발명품이요, 생명 없는 지적 믿음이자 의미 없는 감성적 예식으로 이루어진 인간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종교가 그 헌신의 대상으로 위대한 이상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비(非)실체의 이상들은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러한 개념은 착각이다. 인간적 달성을 민감하게 허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이상은 영원한 하느님에 대한 영적 사실 안에 거하는, 무한한 가치의 신성한 실체들이다.

160:5.6 (1781.2) 하느님이라는 단어, 하느님에 대한 이상과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하느님에 대한 관념은, 그 종교가 미숙할 가능성 또는 거짓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상관없이, 어떤 종교에서도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이 관념은 그것을 품는 사람들이 만들기로

선택하는 어떤 것이든지 될 수 있다. 하급 종교들은 인간의 가슴의 자연 상태에 맞도록 하느님에 대한 그들의 관념을 형성 한다; 상급 종교들은 인간의 가슴이 참 종교의 이상이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지도록 바뀌기를 원한다.

160:5,7 (1781.3) **예수의 종교는** 우리들이 이전에 가졌던 경배에 대한 관념의 개념을 초월하는데, 예수는 그 속에서 그의 아버지를 무한한 실체에 대한 이상(理想)으로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로 이 땅에서 선택하여, 하느님에게는 아들관계 그리고 사람에게는 형제신분을 수락하기로 동의한 모든 필사 창조체들이, 가치들의 신성한 근원과 우주의 영원한 중심을 진정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선포한다. 이것은, 내가 말하건대, 세상에 알려진 것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종교적 개념이며 그리고, 실체들의 무한성, 가치들의 신성, 그리고 우주적 달성들의 영원을 포용하는 이 복음보다 더 높은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나는 단언한다. 이러한 개념은 최극과 궁극의 이상주의를 체험하도록 하는 요소가 된다.

160:5.8 (1781.4) 나는 너희의 주(主)의 이 종교가 더할 나위 없는 이상이라는 사실 때문에 흥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영 실체들에 대한 이 이상들이 달성될 수 있다는 그의 선포가 나를 강하게 감동시켜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였다; 그것은 너희와 내가 이 길고도 영원한 탐험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들이 궁극적으로는 파라다이스의 입구에 도달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主)가 확실히 보장한다는 사실이다. 나의 형제들이여, 나도 믿는다. 나도 같은 배를 탔다. 이 영원한 모험에 너희와 같이 길을 걷고 있다. 주(主)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왔으며 그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였다. 나는 주(主)가 진리를 말씀한다는 것을 충분히 믿는다. 나는 결국 영원한 우주 아버지와 동 떨어져서는, 얻을 수 있는 완전의 가치들 또는 실체의 이상들은 없다고 확신한다.

160:5.9 (1781.5) 그래서 나는 다만 실존(實在)의 하느님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실존(實在) 가능성의 하느님을 경배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최극의 이상을 향한 너희의 헌신은, 그 이상이 실제적인 것이라면, 물질들과 존재들로 구성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우주들의 하느님께 대한 헌신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어떤 다른 하느님도

없으니, 이는 그 어떤 다른 하느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하느님들은 상상으로 꾸며낸 것이고, 필사자 마음의 환상이며, 잘못된 논리의 왜곡이며, 그것들을 창작하는 자들의 자아-기만적인 우상들이다. 물론, 너희는 이 하느님 없이도 종교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만일 너희가 살아 계신 하느님에 대한 이 이상의 실체 대신에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상의 자리, 신성한 실체 안에 관념을 집어넣음으로써 너희들 스스로를 속이게 될 뿐이다.

160:5.10 (1782.1) 나는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 최상의 종교를 발견한다. 이 복음은 우리들로 참 하느님을 추구하고 그를 찾도록 해 준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값을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가? 우리들이 다시 태어나고자, 다시 만들어지고자 하는가? 자아를 버리고 혼을 다시 세워 가는 혹독하고 어려운 과정에 우리가 기꺼이 복종할 것인가? 주(主)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잃을 것이다. 내가 평화를 주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혼으로 하여금 투쟁하도록 하려고

왔다고 생각하라.” 그렇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봉헌하기 위한 값을 지불한 후에, 바쳐진 삶의 영적 경로를 계속 건도록 하는 엄청난 평화를 우리들은 체험한다.

160:5.11 (1782.2) 우리는 이제 실존(實在)의 계층으로 알려진 애착들을 정말로 배척하며, 한편으로는 신성한 실체에 대한 보다 높은 이상주의의 영적 세계에서 모험하는 미래 일생의, 알려지지 않고 탐험되지 않은 실존(實在)의 계층에 대한 매혹들을 우리가 탐구하는 것에 기꺼이 전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동료들에게 예수의 종교의 이상주의의 실체에 대한 이 개념들을 전달할 수 있는, 의미의 상징들을 찾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이 최극의 진리를 공동으로 목격함으로써 감동되는 그 날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방금 초점에 맞추어진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우리 가슴속에 품었던 것처럼, 하느님은 영이시라는 것이다; 친구들에게 전달하였던 것처럼,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다.

160:5.12 (1782.3) 예수의 종교는 살아 있는 영적 체험을 요구한다. 다른 종교들은 전통적인 신념들, 감정적인 느낌들, 철학적인 자각,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주(主)의 가르침은 영의 참된 진보를 실재적 차원들에서 달성할 것을 요구한다.

160:5.13 (1782.4)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충동을 의식하는 것이 참 종교는 아니다. 하느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감정적 느낌도 참 종교가 아니다. 자기를 버리고 하느님을 섬기기로 신념을 가지는 지식도 참 종교가 아니다. 이 종교가 다른 모든 것들 중에 최고라는 이론의 지혜는 개인적이고 영적인 체험으로서의 종교가 아니다. 참 종교는 달성되는 운명과 실체는 물론, 전심으로 신앙에서-받아들이는 그것의 실체 그리고 이상주의와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진리의 영의 계시에 의하여 우리에게 개인적인 것이 되어야만 한다.

160:5.14 (1782.5) 이렇게 하여 자기 민족 중에 가장 훌륭한 자의 한 사람이며 예수의 복음을 믿게 되었던 그리스 철학자의 강연이 끝났다.

제 161 편 이어진 로단과의 토론

161:0.1 (1783.1) 서기 29년 9월 25일, 일요일,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마가단에 모였다. 그 날 저녁에 연관-동료들과 긴 논의를 한 후에, 다음 날 일찍 열 두 사도들과 함께 천막축제에

참석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겠다는 예수 말씀 때문에 모두들 깜짝 놀랐다. 예수는 전도자들에게 갈릴리에 있는 신자들을 방문하라고 지도하였고, 여자 대원들에게는 얼마 동안 벳세다로 돌아가 있으라고 지도하였다.

161:0.2 (1783.2) 예루살렘으로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나다니엘과 도마는 알렉산드리아의 로단과 아직도 토론을 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며칠 동안 더 마가단에 머물러도 좋다는 주(主)의 허락을 받았다. 그리하여 예수와 열 명의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나다니엘과 도마는 로단과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로단이 자신의 철학을 자세히 설명하였던 지난 주 동안에, 도마와 나다니엘은 교대로 그 그리스 철학자에게 왕국 복음을 제시하였었다. 로단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자기를 가르쳤으며 전에 세례자 요한의 사도들중의 하나였던 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예수의 가르침을 잘 배웠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제 1 장. 하느님의 개인성

161:1.1 (1783.3) 로단과 두 사도들 사이에 다르게 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개인성이었다. 로단은

하느님의 속성에 관하여 제시된 모든 것들을 선뜻 받아들였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람이 개인성이라고 착상하는 것과 같은 개인은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도들은 하느님이 개인이라는 것을 그들 자신이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고, 한편 로단도 하느님이 개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여전히 더욱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61:1.2 (1783.4) 로단은, 깊이 공감하여 납득할 능력이 있는 동등성에서의 존재들 사이에서의 충분한 상호간의 교통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안에서, 개인성의 사실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로단은 말했다; “개인이기 위해서는, 하느님은 자신과 접촉하는 자들이 충분히 납득되기 시작하도록 그 자신을 허용할 수 있는, 영(靈) 교통의 상징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하느님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모든 다른 창조체들의 창조자이니까, 이 말은 동등성의 존재로서는 하느님은 우주에서 혼자이시라는 것이다.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는 아무 것도 없다; 그와 동등한 자로서 교통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느님은 정말로 모든 개인성의 근원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서 그는 개인성에 대하여 초월하고

있으며, 이는 창조자가 창조체 위에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161:1.3 (1783.5) 이 주장에 도마와 나다니엘은 아주 곤혹스러워졌으며, 예수께 와서 구조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주(主)는 그들의 토론에 참여하기를 거절하였다. 예수는 도마에게 말해 주었다: “너희가 무한하고 영원한 하느님 본성에 대한 이상을 영적으로 깊이 알고 있는 한, 너희가 품을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한 관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161:1.4 (1784.1) 도마는 하느님이 사람과 교통을 하고, 따라서 로단의 정의(定意)에 따른다고 해도, 아버지는 개인라고 주장하였다. 그리스인은 이것을 하느님이 자신을 친히 개인성을 계시하지 않는다는 것; 하느님은 여전히 신비라는 것을 근거로 물리쳤다. 그러자 나다니엘이 하느님과 가진 자신의 개인적 체험에 호소하며 다시 반론하자, 로단도 자신이 최근에 비슷한 체험이 있다고 단언하며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그는 이들 체험이 기껏해야 하느님의 실체를 증명한 것이며 그의 개인성을 증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161:1.5 (1784.2) 월요일 밤이 되자 도마는 포기하였다. 그러나 화요일 밤이 되어서, 나다니엘이 로단을 이기고 아버지의 개인성을 믿게 하였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논리단계에 따라서 그리스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내었다:

161:1.6 (1784.3) 1. 파라다이스에 계신 아버지는 적어도 다른 두 존재, 자신과 충분하게 동등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과 같은—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靈)—두 존재와 교통에서의 동등성을 즐기고 있다. 삼위일체 교리의 관점에서, 그리스인은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 가능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 토론에 대하여 나중에 가졌던 고려가 열 두 사도들의 마음속에서 삼위일체의 확대된 개념으로 이끌었다. 물론, 예수가 영원한 아들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었다.)

161:1.7 (1784.4) 2. 예수가 아버지와 동등하니까, 그리고 이 아들이 땅에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개인성의 현시활동을 성취했으니까, 그러한 현상은 사실의 증명, 그리고 가능성의 실증, 신격(神格)의 셋 모두에 의한 개인성 소유에 대한 증명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사람과 교통하는

하느님의 능력과 그리고 사람이 하느님과 교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언제까지나 해결한 것이다.

161:1.8 (1784.5) 3. 저 분 예수는 사람과 상호-연관의 관계와 완전한 교통의 관계를 맺었다; 그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아들과 아버지의 그 관계는, 교통에서의 동등성과, 깊이 공감하는 납득에서의 상호성을 전제로 한다; 저 분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였다. 저 분 예수는 하느님과의 그리고 사람과의 교통을 동시에 납득하였으며, 예수가 교통에 사용한 상징의 의미를 하느님과 사람 모두가 이해하였기 때문에, 상호 교통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관계되는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하느님과 사람 둘 모두 개인성의 속성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 분 예수의 개인성은 하느님의 개인성을 실증하였으며, 동시에 그것은 사람 속에 하느님이 현존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같은 일에 관계되어있는 두 가지 일들은 서로 간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161:1.9 (1784.6) 4. 저 분 개인성은 인간 실체와 신성한 가치들에 대하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개념을 대표한다; 저

분 하느님 역시 신성한 실체와 무한한 가치들에 대하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개념을 대표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분 하느님은, 개인성에 대한 사람의 개념과 정의(定意)를 무한하게 그리고 영원하게 초월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의 신성하며 무한한 개인성, 실체로서의 개인성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물론 언제나 그리고 우주적인 개인성이 틀림없다.

161:1.10 (1784.7) 5. 저 분 하느님은 모든 개인성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개인성의 운명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인성이어야만 한다. 로단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에 의해 막대한 영향을 받았었다.

161:1.11 (1784.8) 이들 주장을 들었을 때, 로단은 말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만약 여러분이 내게, 것처럼 초인간적, 초월의, 최극의, 무한한, 영원한, 최종적 그리고 우주적인, 확대된 가치들의 집단을 개인성의 의미에 덧붙이는 것으로, 어떤 그러한 믿음에 대한 나의 고백에 자격을 갖추도록 허락해 준다면, 나는 하느님은 하나의 개인이라고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하느님이

개인성보다는 무한히 크심이 틀림없지만, 한편으로는 그는 그 이하의 그 어떤 것일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나는 예수를 아버지의 개인적 계시로서 그리고 논리와 이성 그리고 철학의 만족되지 못한 모든 요소에 대한 만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그리고 논쟁을 끝낸다는 것에 만족한다."

제 2 장. 예수의 신성한 본성

161:2.1 (1785.1) 나다니엘과 도마는 왕국 복음에 대한 로단의 견해에 충분히 인정하였지만, 더 고려해야 할 것이 꼭 한 가지 남았는데, 아주 최근에 대중에게 선언된 교리인, 예수의 신성한 본성을 다루는 가르침이었다. 나다니엘과 도마는 주(主)의 신성한 본성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공동으로 제시하였고, 다음의 이야기는 그들 가르침이 요약, 재정리, 재구성되어진 제시이다:

161:2.2 (1785.2) 1. 예수는 자신의 신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는다. 예수의 사명활동과 관련하여, 우리가 그를 하느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오직 납득할 수 있는 놀랄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161:2.3 (1785.3)

2. 예수의 일생과 우리와의 관계적-연합은 인간 우정의 이상(理想)을 본보기로 보여준다; 아마도 그 같은 인간 친구는 오직 신성한 존재만이 그럴 수 있다. 예수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진실로 가장 사심-없는 분이시다. 예수는 죄인들조차도 친구로 삼으시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한다. 그는 우리에게 매우 충성이다. 우리를 책망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지만, 그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누구도 의심치 않는다. 당신이 그를 알면 알수록,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의 변함없는 헌신에 매혹될 것이다. 우리가 그의 임무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내내, 그는 신실한 친구였다. 비위맞추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를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며; 언제나 부드럽고 연민이 가득하다. 그의 일생뿐만 아니라 그 모든 다른 것들도 우리와 함께 나누었다.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이다;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서로 나눈다. 우리는 그렇게 벅찬 상황아래에서 한낱 인간이 그렇게 티 없는 일생을 살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161:2.4 (1785.4)

3. 우리는 예수가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는 그가 결코 그릇되지 않으시고; 그 어떠한 오류도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지혜는 비상하며; 그의 경건함은 더할 나위없다. 그는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완전하게 사신다. 그는 아버지의 법을 어긴 적이 없기에, 나쁜 짓에 대한 뉘우침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가 한결같이 죄가 없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단순히 인간으로서 일찍이 그러한 일생을 살려고 공언했던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완전한 일생을 산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한다고 인정한다. 우리의 경건함은 회개로부터 솟아 나오지만, 그의 경건함은 정의로움으로부터 솟아 나온다. 그는 죄를 용서한다고 공언하며, 병을 고친다. 한낱 인간은 그 누구도 죄를 용서한다고 제 정신으로 공언할 수 없으며; 그것은 신성한 특권이다. 우리가 그를 처음 만난 때로부터 그는 자신의 정의로움 속에서 그렇게 완전한 듯하였다. 우리는 은혜 속에서 그리고 진리의 지식 속에서 자라지만, 우리 주(主)는 시작 때부터 정의에서의 성숙을 내 보이신다. 모든 사람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예수 안에서 이들 선(善)의 요소들을 인지한다. 그의 경건함은 결코 눈에 거슬리거나 티가 나지 않는다. 그는

온유하면서 두려움이 없다. 그는 자신의 신성을 믿는 우리를 승인하는 것 같다. 그는 자신이 선언한 바로 그런 분이든지, 아니면 세상에 일찍이 알려진 자 가운데, 최고의 위선자요 사기꾼이다. 우리는 그가 자신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런 분이라고 확신한다.

161:2.5 (1785.5) 4. 그의 성격의 독특함과 자신의 감성 통제의 완전함은 우리에게 그가 인간성과 신성의 병합이라는 확신을 준다. 그는 인간적 필요가 있어야 할 장면에서 어김없이 반응하며; 고통이 그에게 호소되지 않은 적은 결코 없다. 그의 연민은 육체의 고통이나 정신적 고뇌 또는 영적 슬픔을 막론하고 똑같이 움직이신다. 그는, 신앙의 현존이나 동료인간에게 있는 그 어떤 자비도 곧바로 인지하고 그리고 넉넉하게 인정해 주신다. 그는 매우 공정하고 공평하며 동시에 매우 자비롭고 사려 깊다. 사람들의 영적 완고함을 슬퍼하고 그들이 진리의 빛 보기를 따를 때에 크게 기쁨을 향유한다.

161:2.6 (1786.1) 5. 그는 사람 마음의 생각들을 아시는 것처럼 보이며 그들 가슴의 소망을 납득하는 듯하다. 그리고 그는 항상 우리의 고난 받는 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인간 감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감정은 장엄하게 영화롭다. 그는 선(善)을 강렬히 사랑하지만 그만큼 죄를 미워한다. 그는 신(神)의 현존에 대한 초인간 의식을 지니고 있다. 그는 사람처럼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느님처럼 실행한다. 그는 사물을 예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서슴없이 자신의 죽음, 앞날에 그가 영화롭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신비스런 사례를 말하고 있다. 그는 친절하지만, 대담하고 용기가 있다. 그는 자신의 의무를 하는 데에서 결코 머뭇거린 적이 없다.

161:2.7 (1786.2) 6. 우리는 그의 초인간적 지식을 나타내는 현상에 끊임없이 감동을 받는다. 주(主)가 자신 앞에 즉시 현존하지 않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음을 드러내는 어떤 일이 거의 매일 일어난다. 또한 그는 자기 연관-동료들의 생각을 아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천상의 개인성들과 영적으로 밀접한 교제를 가지시는 것이 분명하며;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가 머무르는 곳보다 위로 한참 높은 영적 수준에서 살고 있다. 그가 특유하게 납득하고 있는 곳에 모든 것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정보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화에 이끌려 나오게 하려고 질문한다.

161:2.8 (1786.3) 7. 주(主)는 최근에 이르러서 자신의 초(超)인간성을 서슴지 않고 주장한다. 우리가 사도로서 임명 받은 날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는 자신이 위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인한 적이 없으시다. 그는 신성한 교사의 권한으로 말씀한다. 주(主)는 오늘날의 종교적 가르침들의 잘못을 증명하고 적극적인 권한으로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단호하고 적극적이며 권위가 있으시다. 세례자 요한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느님의 아들임을 증거 하였다. 그는 자신으로서 너무나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대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사람들의 의견에 개의치 않으신다. 그는 용감하면서도 자부심과는 거리가 멀다.

161:2.9 (1786.4) 8. 그는 하느님에 관하여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언제까지나-제시되어 있는 연관-동료로서 변함없이 이야기한다. 그는 자기 속에 하느님께서 계시기라도 한 듯이 부지런히 선을 행한다. 그는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의 자신의 임무에 대하여 가장 대경실색할 주장을 하는데, 이것들은 그가 만일 신성하지 않았더라면 터무니없는 말이 되어야 할 진술들이다. 그는 언젠가 선언하였다,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나 이다.” 그는 신성을 명백하게 주장해 왔다; 하느님과 동반자관계에 있다고 공언한다. 그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친밀한 협동관계에 있다고 주장을 되풀이한다. 그는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라고까지 주장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을 마치 어린아이가 하는 그런 자연스러움으로 말하고 행한다. 그는 자신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연합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버지와 가지는 자신의 관계적-연합을 언지시 말한다. 그는 하느님에 관하여 너무나 확실해서 그래서 그러한 사실의-문제로서 이들 관계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61:2.10 (1786.5) 9. 그는 자신의 기도 생활 속에서 그의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교통을 나누시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그의 기도를 아주 조금밖에 듣지 못하였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마치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하느님과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그가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면, 이 모든 내용들이 그에게 해당되지 않으며, 이 모든 신비한 일들을 행치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그가 인간이심을 잘 알며, 그것을 확신하는 만큼, 그가 또한 신성이심을 확신한다. 우리는 그가 신성임을 믿는다. 우리는 그가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한다.

161:2.11 (1787.1) 나다니엘과 도마는 로단과의 토론을 끝내고 나서, 다른 사도들과 합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급히 출발하였으며, 그 주간의 금요일에 도착하였다. 이 토론은 이 세 신자들 모두의 삶 속에서 큰 체험이 되었으며, 다른 사도들은 이 체험들에 대한 나다니엘과 도마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161:2.12 (1787.2) 로단은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갔고, 그곳에 있는 메간타의 학교에서 본인의 철학을 오랫동안 가르쳤다. 그는 하늘의 왕국의 후기 관련사들에서 막강한 사람이 되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끝까지 신실한 신자였고,

박해가 극에 달하였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

제 3 장. 예수의 인간 그리고 신성한 마음들

161:3.1 (1787.3) 신성에서의 의식은 그가 세례 받는 계기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마음속에서 점차적으로 자라갔다. 자신의 신성한 본성과 인간-이전의 실존(實在) 그리고 우주적 대권을 충분히 자아-의식한 후에, 자신의 신성에 대한 인간 의식을 여러 가지로 제한시키는 힘을 소유하게 된 것 같다. 예수가 세례를 받으신 후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오직 인간 마음에만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이고 신성한 마음들 모두를 사용하실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의 결정에 맡겨졌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때로는 인간 지성 속에 있는 지식만을 사용한 듯하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의 신성한 의식에서의 초인간적 내용을 이용함으로써만 잘 제공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였다.

161:3.2 (1787.4) 자신의 신성 의식을, 뜻대로, 자아-제한할 수 있다는 가설을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그의 독특한

행위들을 납득할 수 있다. 그는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선형지식을 자신의 연관-동료들에게 알리기를 보류하는 일이 빈번했고,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의 본성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우리가 납득하건대, 그가 그들의 생각을 식별할 수 있고 그들의 계획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추종자들이 너무 잘 아는 것을 그는 바라지 않았다. 그는 그의 사도들과 제자들의 마음 안에 깃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개념을 너무 멀리 초월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161:3.3 (1787.5) 우리는 예수가 자신의 신성한 의식을 자아-제한하는 실천 관행과, 그의 인간 연관-동료들로부터 그의 예견지식과 생각을 헤아리는 것을 감추고 있는 그의 기법, 이 둘의 차이를 도무지 구별하지 못한다. 그가 이 두 가지의 기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확신하지만, 주어진 어떤 사례에서 어느 방법을 적용한 것인지, 우리는 항상 상술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우리는 의식에서의 인간적 내용만을 가지고 그가 행동하는 것을 자주 관찰했다; 그가 우주의 천상의 무리들의 지도자들과 회의하는 것을 목격하면, 그때 우리는 의심할 여지없이 신성한 마음이 기능하고

있음을 헤아리곤 했다. 그리고 나서 거의 수없이 많은 경우에, 인간 마음과 신성한 마음의 완전한 연합이 흰히 나타나는 것으로 활성화되면서, 그에 따라 사람과 하느님의 병합된 개인성이 일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것이 그러한 현상들에 대한 우리 지식의 한계이다; 우리는 실재로 이 신비에 대한 충분한 진리를 실재로 알지 못한다.

제 162 편 천막 축제

162:0.1 (1788.1) 예수는 열 사도들과 예루살렘을 떠나실 때, 보다 가까운 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려고 계획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호수의 동쪽 기슭을 따라 스키토폴리스 길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다. 밤이 가까워 오자 예수는 빌립과 마태를 길보아산 동쪽 비탈에 있는 한 마을에 보내어 일행을 위한 잠자리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마침 이 마을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하여 보통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도 훨씬 깊은 반감을 갖고 있었으며, 이때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천막축제를 위하여 여행을 하는 특별한 시기였으므로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거의 알지 못하였으며, 예수와 그 일행들이

유대인들이었으므로 잠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마태와 빌립이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분개를 현시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환영하기를 거절하고 있다고 소리치자, 격분한 마을 사람들은 몽둥이와 돌로써 그들을 성읍 밖으로 쫓아내었다.

162:0.2 (1788.2) 빌립과 마태가 일행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마을 밖으로 쫓겨났는지를 보고하였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아가서 말했다; “주(主)여,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이 무례하고 완악한 사마리아인들을 삼켜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복수심이 가득한 이 말들을 들으신 예수는 세베대의 아들들을 향하여 엄하게 꾸짖었다. “너희가 현시하고 있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도대체 모르고 있구나. 복수하는 자는 하늘의 왕국의 걸모습도 쳐다보지 못한다. 논쟁하지 말고 차라리 요단강 옆에 있는 작은 마을로 가자.” 이렇게 하여 이 사마리아인들은 분파적인 선입관 때문에 우주의 창조자 아들을 환대하는 영광을 스스로 거부하였다.

162:0.3 (1788.3) 예수와 열 사도들은 요단강에서 가까운 마을에서 밤을 보냈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강을 건너서 동쪽 요단 도로를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계속하였으며, 베다니에 도착한 것은 수요일 늦은 밤이었다. 로단과의 토론 때문에 뒤에 남아 있었던 도마와 나다니엘이 금요일에 도착하였다.

162:0.4 (1788.4)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 다음 달까지(10월) 약 4 주 반 동안 머물렀다. 예수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단지 몇 번밖에 되지 않았으며, 잠깐 동안의 이 방문들은 천막축제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 예수는 10월의 상당히 많은 날들을 아브너 그리고 그의 연관-동료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보내셨다.

제 1 장. 위험한 예루살렘 방문

162:1.1 (1788.5) 그들이 갈릴리로부터 피신하기 훨씬 전에, 예수의 메시지가 유대인의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에서 전파된다는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가서 왕국 복음을 증거 하라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간청하였었지만; 가르치기 위해 실재로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자, 그들은 예수의 안전을 걱정하게 되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 재판하려 한다는 것을 알뿐만 아니라, 주(主)가 최근에 자신이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되풀이하여 선포하는 것이 생각났기 때문에, 천막축제에 참석하려는 주(主)의 갑작스런 결정에 사도들은 대경실색하였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라고 그들이 전에 간청할 때마다 주(主)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이제 두려움 때문에 만류하는 그들에게 대답한 것은 오로지, “그렇지만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162:1.2 (1788.6) 천막축제 기간 동안 예수는 몇 번에 걸쳐서 대담하게 예루살렘에 가셨으며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다. 사도들이 주(主)를 단념시키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主)는 이 일을 행하였다. 예루살렘에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오랫동안 간청하였던 그들이었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主)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서 주(主)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움으로 지켜보게 되었던 것이다.

162:1.3 (1788.7) 예루살렘에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의 대담한 행동만큼, 그를 따르는 자들을 혼동시킨 사건은 없었다. 많은 제자들은, 사도 가롯 유다 까지도, 예수가 서둘러 베니게로 피신한 것은 유대인 영도자들과 헤롯 안티파스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감히 생각했었다. 그들은 주(主)가 다른 곳으로 옮기신 의의(意義)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따르는 무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천막축제가 한창인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그의 현존은, 그가 겁이 있고 비겁하다는 온갖 수군거림을 그치게 하기에 언제까지나 충분하였다.

162:1.4 (1789.1) 천막축제 기간 동안 로마제국의 여러 지방에서 온, 수 천 명의 믿는 자들이 예수를 보았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향에도 그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하여 의논하기 위해 베다니로 나가기조차 하였다.

162:1.5 (1789.2) 그 축제 기간 동안 예수가 어떻게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조직들 속에서 비밀리에 정서가 갈라진 결과로 산헤드린의

관리들에게 엄습한 두려움이었다. 산헤드린 회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예수를 믿었으며, 이토록 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자들도 많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가 후원하는 영적 운동에 호의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축제 기간 동안에는, 그를 체포하지 말자고 단호하게 반대하는 회원들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162:1.6 (1789.3) 아브너와 그의 연관-동료들이 유대 전역에서 수고함으로써 왕국에 대해 호의를 보이는 정서가 조성되었으므로, 예수의 적들도 감히 드러내놓고 방해하지 못하게 되었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간섭받지 않았던 이유들 중의 하나이다. 한 두 달 전 같았으면 틀림없이 예수를 죽였을 것이다.

162:1.7 (1789.4) 그러나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신 예수의 대담한 배짱이 그의 적들을 간담이 서늘케 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대담한 도전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산헤드린은 주(主)를 체포하려고 미약하나마 그 한 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도를 하였지만, 노력에 대한 결과는

아무 것도 없었다. 예수의 적들은 예기치 않은 예수의 예루살렘 출현에 너무 놀라서 그가 로마 당국에 의해 보호를 약속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짐작했다. 빌립(헤롯 안티파스의 형제)이 예수를 따르는 자나 진배없다는 사실을 아는 산헤드린의 회원들은 빌립이 예수에게 그의 적들로부터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예수가 갑자기 대담하게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것은 로마의 관리들과 비밀리에 협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었던 것이 그들의 오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예수가 그들의 관할 구역을 떠나신 후였다.

162:1.8 (1789.5) 마가단을 떠날 때 예수가 천막축제에 참석하리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오직 열 두 사도들뿐이었다. 예수가 성전 뜰에 나타나셔서 대중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을 때, 주(主)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매우 놀랐으며, 유대인 관리들은 예수가 성전(聖殿)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 놀라 말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162:1.9 (1790.1) **예수가 축제에 참여하리라는 것을 제자들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멀리서 소문을 들은 순례자들 대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가 솔로몬의 행각 그리고 성전의 여러 뜰에서 여러 번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 가르침들은 유대인들은 물론 전 세계의 민족들에게 예수의 신성에 대한 실제로 공식으로, 즉 정식으로 선포한 것이었다.**

162:1.10 (1790.2) **주(主)의 가르침을 들었던 군중들의 견해가 여럿으로 나뉘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선한 사람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라 하였다; 정말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상한 교리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자라고 하였다. 예수의 적들은 그에게 동조하는 신자들을 두려워하여 드러내 놓고 예수를 비난하지 못하고 망설였으며, 반면에 예수께 동조하는 자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 영도자들이 무서워서 공공연히 예수를 지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의 적들도 예수가 학교나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162:1.11 (1790.3)

예수가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사도들은 두려움으로 가득하였다. 예수가 이 땅에서의 자기 임무의 본성에 대하여 날마다 점점 더 대담하게 선포하는 것을 듣고 그들은 더욱 두려워하였다. 동료들에게 설교할 때조차도 예수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놀랄 정도로 단언하는 것은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었다.

제 2 장. 성전에서의 첫 번째 말씀

162:2.1 (1790.4)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친 첫 날 오후에, 새로운 복음의 해방에 대하여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믿는 자들의 기쁨에 대하여 설명하는 예수의 말씀을 매우 많은 무리들이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호기심 많은 자가 말씀을 가로막고 질문했다; “선생님, 당신은 랍비의 가르침도 받지 못하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토록 유창하게 성서를 인용하고 사람들을 가르치십니까?” 예수가 대답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진리들에 대하여 내게 가르쳐 준 자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만일 내 아버지의 뜻을 실제로 행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하느님에 관한 것이든지 또는 나 자신에 관하여 말한 것이든지, 내 가르침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그러나 너희가 새로운 빛에 들어가려고 애쓰기 전에, 너희가 이미 가진 빛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모세는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전히 정직하게 추구하고 있는 자들이 너희 중에 얼마나 있느냐? 모세는 율법에서 너희에게 명하기를, '살인하지 말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는 사람의 아들을 죽이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다."

162:2.2 (1790.5) 군중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 중에 언쟁이 벌어졌다. 어떤 자들은 예수를 미쳤다 하고; 어떤 자들은 귀신들렸다고 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오랫동안 찾았던 바로 그 갈릴리의 선지자라고 하였다. 어떤 자들은 종교 기관도 감히 그를 괴롭히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또 어떤 자들은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적지 않은 논쟁이 있는 후에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예수께로 나와서 묻기를, "통치자들이 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가 대답했다; "통치자들이 나를 죽이려는 이유는 왕국의 새로운 소식, 이들 선생이 어떤

대가(代價)를 치르고서라도 옹호하기로 결정한, 형식적 종교 예식의 견디기 힘든 전통으로부터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복음에 대한 내 가르침에 분개하기 때문이다. 자기들은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도, 고통의 노예가 되었던 어떤 사람을 내가 안식일에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자기들은 안식일에도 나를 쫓아다니면서 정탐하였지만, 내가 안식일에 중환자를 완벽하게 고쳐주었을 때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였다. 만일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감히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믿게 되면, 자기들의 전통적 종교 체계가 전복되고 언제까지나 무너지리라는 것을 그들이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 왕국의 이 새롭고도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확고하게 거절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을 바쳐 얻은 권한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 모두에게 당부하겠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이들 가르침의 참된 영으로 판단하라; 의롭게 판단하라.”

162:2.3 (1791.1) 그러자 다른 사람이 질문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나타남은 신비로움 안에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압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당신의 형제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해방자는 다윗의 왕권을 재건하기 위하여 힘으로 올 것입니다. 당신이 실제로 메시아라고 주장하십니까?” 예수가 대답했다;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고 네가 주장하는데, 나도 네 주장이 참된 것이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만일 네가 참으로 나를 안다면, 네가 그 지식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며;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그는 진실하고 성실하시다. 너희는 내 말을 듣기 거부함으로써 나를 보내신 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다. 만일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희는 나를 보내신 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그를 선포하고 계시하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다.”

162:2.4 (1791.2) 서기관들의 하수인들이 그를 붙잡고자 하였으나, 군중을 두려워하였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기 때문이다. 세례 이후의 예수의 활동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고,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들끼리 말했다; “저 선생님이 갈릴리에서 오셨고, 우리가 메시아로서 기대하고 있는 것을 모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만약 해방자, 그가 오셨을 때 과연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가 이미 행한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162:2.5 (1791.3)} 바리새인들과 그 하수인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영도자들과 상의했고, 당장에 예수가 성전 뜰에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금하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유대인 영도자들은 대개 로마의 당국자들이 어떤 특권을 약속하였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였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러한 때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예수의 대담성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산헤드린 회원들은 이 소문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다. 그들은 로마인 통치자들이 그러한 일을 유대 나라의 최고 통치 기관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162:2.6 (1791.4) 따라서 산헤드린의 담당 관리 이버가 두 명의 보좌관들과 함께 예수를 잡아오라고 파견되었다. 이버가 예수께 다가가자 주(主)는 말씀했다; “내게 오는 것을 두려워 말라. 더 가까이 와서 나의 가르침을 들으라. 나를 체포하라고 네가 파견된 것을 안다. 그러나 그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 일도 사람의 아들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할 것이다. 너는 나를 배척하지 않는다; 오직 네 상관들의 명령 때문에 왔을 뿐이고, 유대 통치자들은 나를 비밀히 죽이고자 하면서 하느님께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162:2.7 (1792.1) “나는 너희 중에 누구도 악한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통의 어두움과 편견의 사슬로부터 너희가 해방되기를 몹시 고대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일생의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내밀고 있다. 나는 죄의 사슬을 끊고 악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 너희가 생명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을 영원히 갖게 하려고 왔다. 너희는 나와 너희를 불안하게 걱정시키는 나의 가르침을 없애려고 애쓰고 있다. 내가 너희와 잠시 동안 밖에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나는 이제 곧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주신 분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나를 찾겠으나, 너희는 나의 현존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내가 가는 곳이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를 찾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현존으로 인도하는 생명을 언젠가 달성할 것이다.”

162:2.8 (1792.2) 조소하던 몇 명이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곳으로 가겠다니, 어디를 말하는가? 그리스인에게로 가려는가? 자살하려는가? 우리를 곧 떠나겠다는 말은 무엇이며, 그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162:2.9 (1792.3) 이버와 그의 보좌관들은 예수를 체포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집합 장소로 그냥 돌아갔다. 그들이 예수를 체포하여 함께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두머리 사제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버와 보좌관들을 신랄하게 질책하자, 이버는 다만 대답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으므로 군중들 속에서 그를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선생님에게는 보통이 아닌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가셔서 그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우두머리 통치자들은 깜짝 놀라서 이버에게 욕하며 말했다; “너도 타락해 버렸느냐? 그 거짓말쟁이를 믿으려고 하느냐? 배운 자들이나 통치자들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들어본 적이 있느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의 교활한 가르침에 속은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더냐? 네가 어찌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식한 군중들의 태도에 동조하게 될 수가 있느냐?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았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자 이버는 대답했다; “나의 주(主)들이시여,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군중들에게 자비와 희망에 넘친 말을 합니다. 그는 낙심한 자들을 활기치게 하였고, 그의 말은 우리의 혼까지도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가 비록 성서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아닐지 몰라도, 그 가르침 속에 무슨 그릇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의 법은 공명정대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그를 정죄합니까?” 그러자 산헤드린의 우두머리는 이버에게 격노하며 그에게 달려들면서 말했다; “네가

미쳤느냐? 너도 혹시 갈릴리에서 온 것이 아니냐? 성서를 찾아보아라. 갈릴리에서는 메시아는 고사하고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음을 발견할 것이다.”

162:2.10 (1792.4) 산헤드린 공회는 당황하여 해산하였으며, 예수는 밤을 보내기 위해 베다니로 돌아갔다.

제 3 장. 간통으로 잡혀 온 여인

162:3.1 (1792.5) 예수의 적들과 어떤 여인을 고소하는 자들이 그의 현존 앞으로 데려온, 악하다고 소문난 그 여인을 예수가 대한 것은 이 예루살렘 방문 기간 동안이었다. 이 에피소드에 대하여 너희가 갖고 있는 왜곡된 기록은, 이 여인은 예수와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앞으로 끌려왔으며, 이 유대 종교 영도자들 자신이 부도덕에 있어서 죄가 있을 수도 있음을 자각하도록 예수가 그들을 다루었다고 암시하고 있을 것이다. 예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통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눈이 멀고 지적으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물론, 그 시대에 가장 도덕적인 사람들의 부류에 속한다는 것도 잘 아셨다.

162:3.2 (1793.1)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다: 축제의 세 번째 날 아침에, 예수가 성전에 가까이 가면서, 어느 여인을 끌고 가는 산헤드린에 고용된 관리들의 집단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가까이 오면서, 그들 중에 대변자가 말했다: "주(主)여, 이 여자가 간음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그러한 여인에게는 우리가 돌을 던져야만 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당신은 명하겠습니까?"

162:3.3 (1793.2)

만일 예수가 자아-고백한 죄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모세의 율법을 채택하면, 로마 법정의 허락 없이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이 유대인에게 금지한 로마 통치자들과 시비에 말려들게 하려는 것이 예수의 적들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만일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면, 모세와 유대인 법보다 자신을 높였다고 산헤드린 앞에서 예수를 고발할 생각이었다. 만일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비겁하다고 비난하려 하였다. 그러나 주(主)는 그 음모 전체가 그 자체의 더러운 무게로 인하여 산산조각 나도록 그 상황을 잘 처리하였다.

162:3.4 (1793.3) 한 때 미모를 소유하였던 이 여인은, 예수의 젊은 시절 내내 예수에게 항상 말썽을-부렸던 자인, 나사렛의 한 하류 계층 사람의 아내였다. 이 여인과 결혼한 그는 아내에게 강제로 몸을 팔게 하여 돈을 벌어 생활하는 너무도 부끄러운 짓을 하였다. 그는 아내의 육체적인 매력을 이용하여 매춘으로 돈을 벌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축제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그는 유대인 통치자들이 고용한 자와 흥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자기 아내를 상업화된 악행에 팔아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서 그가 체포되었을 때에 써먹을 어떤 진술을 이끌어 낼 목적으로 여자와 법을 어긴 그녀의 동행자를 데리고 왔던 것이다.

162:3.5 (1793.4) 예수는 군중을 둘러보시다가 다른 사람들 뒤에 서 있는 그녀의 남편을 발견하였다. 예수는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이미 아셨고, 그가 비열한 거래행위에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예수는 먼저 이 타락한 남편이 서 있는 곳으로 가서 몇 마디의 말을 모래 위에 썼고, 이 말이 그를 서둘러 떠나게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여인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녀를 고발하려는 자들이 보라고 다시 땅에 쓰셨으며, 그들 역시 이것을 읽고 하나씩

떠나갔다. 주(主)가 세 번째로 모래 위에 쓰셨을 때, 악한 일에 그녀와 함께 한 그녀의 동행자도 떠나갔으며, 그리하여 예수가 쓰시기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에는 오직 그 여인만이 주(主) 앞에 서 있었다. 예수는 말씀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느냐?” 그 여인이 눈을 들면서 대답하기를,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말씀했다; “나는 너에 대하여 알고; 나도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평안히 네 길을 가라.” 그리고 이 여인, 힐다나는 사악한 남편을 버리고 왕국의 제자가 되었다.

제 4 장. 천막 축제

162:4.1 (1793.5) 스페인으로부터 인도까지 당시에 알려진 모든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예수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복음 전파를 예루살렘에서 하기에는 이 천막축제가 가장 이상적인 기회였다. 이 축제 때는 모든 사람들이 밖에서, 앞으로 만든 오두막에 기거하였다. 이것은 추수하여 수확하는 축제였으며, 곧 가을이 되고 추워지는 시기였으므로, 겨울이 끝나는 때의 유월절이나 여름이 시작되는 때의 오순절 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부터 모여들었다. 말하자면, 사도들은 마침내

그들의 주(主)가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온 세계 앞에 대담한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었다.

^{162:4.2 (1794.1)} 다른 축제들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희생물이 이때에만 바쳐졌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축제들 중의 축제였다. 이때에는 성전 헌납금을 받았다; 종교적인 경배의 장엄한 의식(儀式)도 있었지만 휴가를 즐기는 것도 함께 이루어졌다. 민족적인 기쁨, 희생물, 레위인의 영창, 그리고 사제들의 은백색 트럼펫에서 나오는 장엄한 경적 소리 등이 함께 어우러졌다. 밤에는 여인의 뜰에서 밝게 타오르는 거대한 촛대들과 성전 뜰 근처에 서 있는 많은 햇불의 현란한 빛에 의하여, 성전의 인상적인 모습과 순례자 군중들이 밝게 비쳐진다. 이러한 즐겁고 거룩한 광경과는 대조적으로 험상궂게 내려다보고 있는 안토니아의 로마 성곽을 제외한 모든 도시가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로마의 숙박을 언제나 생각나게 하는 이것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162:4.3 (1794.2)} 축제 기간 동안에 이방의 70개 국가들을 상징하는 70마리의 황소가 희생물로 바쳐졌다. 물을 흐르게 하는 의식은 신성한 영이 흘러나오는 것을 상징하였다. 물로

하는 이 의식은 사제들과 레위인 들의 해돋이 행진에
이어서 행해졌다. 경배를 드리는 자들은 은백색 트럼펫이
연속적으로 소리를 내는 동안 이스라엘의 뜰로부터
여인의 뜰 쪽으로 이어진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갔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뜰로 열린 아름다운 문을 향하여
정확한 행진을 한다. 그들은 이곳에서 서쪽으로 향하고,
그들의 영창이 반복되었으며, 상징적인 물을 향하여
행진을 계속하였다.

162:4.4 (1794.3)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거의 450명이나 되는
사제들이 같은 숫자의 레위인 들과 함께 집례를 하였다.
날이 새면 도성의 각처로부터 순례자들은 각자 오른 손에
도금양나무와 버드나무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왼
손에는 파라다이스 사과—시트론 열매 또는 “금단의
열매”— 가지를 들고 모여들었다. 이 순례자들은 이른
아침의 예식을 위하여 세 무리들로 나뉘었다. 한 무리는
아침 희생 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전 뜰에 남았다; 다른
하한 무리는 희생 제단을 장식하기 위하여 버드나무
가지를 자르기 위해 예루살렘 밑에 있는 마자 가까이로
내려갔으며; 그동안 세 번째 무리들은 성전으로부터
대열을 지어 은백색 트럼펫 소리에 맞추어서 행진하여

상징적인 물이 들어 있는 금 주전자를 손에 든 물 담당 사제 뒤를 따라 오펠을 통과하여 분수 문이 있는 실로암 근처로 나아갔다. 금 주전자의 물이 실로암 연못에 다 부어진 후, 행렬은 다시 성전으로 향하며 수문(水門) 길로 들어가서 곧바로 사제들의 뜰로 가는데, 그곳에서 물 주전자를 들고 있는 사제는 축배 제공을 위한 포도주를 들고 있는 사제와 만난다. 이 두 사제들은 제단의 바닥으로 이어진 은으로 된 좁은 통로를 따라 내려가서 주전자에 들어 있는 것을 그곳에 부었다. 포도주와 물을 붓는 이 의식이 행해지는 것이 모인 순례자들에게 신호가 되어 레위족들과 번갈아가면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전부 영창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이 시편들을 반복할 때, 그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제단 주변에서 물결치듯 하였다. 그 다음에는 그 날의 희생물이 바쳐졌는데, 그 날의 시편(詩篇)이 반복되는 것과 함께, 축제의 마지막 날의 시편은 82편이었고, 5절부터 시작되었다.

제 5 장. 세상의 빛에 대한 설교

162:5.1 (1794.4) 축제의 마지막 날이 되기 하루 전 날 저녁, 그 광경이 큰 촛대들과 햇불들로 환하게 비쳐졌을 때, 예수는

모인 군중들 한가운데에서 일어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162:5.2 (1795.1)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주제넘게 나를 재판에 회부하고, 마치 나의 재판관이라도 되듯이 앉아서, 내가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그 증언은 참되지 못할 것이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창조체가 창조자를 심판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증언하더라도, 나의 증언은 영속적으로 참된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죽이려 하면서,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또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다만 육신의 모습으로 판단하며; 영의 실체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나는 아무도, 심지어는 나의 큰 적이라 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판단을 해야 한다면, 나의 판단은 참되며 의로울 것인데, 왜냐하면 이는 내가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참된 심판의 근원이신 내 아버지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믿을만한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데—자, 그러면 내가

이들 진리의 증인이 되겠으며; 그렇게 또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그리하실 것이다. 내가 어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너희의 어두움 안에서 내게 묻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하였는데, 진실로,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162:5.3 (1795.2) "내가 떠날 것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이 빛을 거부하는 너희는 아래로부터 왔으며; 나는 위로부터 왔다. 어둠 속에 앉아 있기를 더 좋아하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빛들의 아버지이신 영원한 빛 속에서 산다.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졌었지만, 아직도 사람의 아들의 정체성을 확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가지려고 한다. 나는 생명의 빛이며, 이 구원하는 빛을 고의로 또는 알면서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이 있지만,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아무튼 나를 보내신 분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며; 내 아버지는 죄를 범하는 자녀들도 사랑한다.
내 아버지께서 말씀한 모든 것을 내가 세상에 선포해 왔다.

162:5.4 (1795.3) “사람의 아들이 들려 올라갈 때, 그때에야 너희가 내가 그인 것과,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친 것만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말들을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들려준다. 나를 보내신 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나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는데, 그것은 내가 항상 아버지의 눈에 즐거워하시는 일만을 하기 때문이다.”

162:5.5 (1795.4) 예수가 이렇게 성전 뜰에서 순례자들을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감히 그를 잡으려 하지 못하였다.

제 6 장. 생명의 물에 대한 강론

162:6.1 (1795.5) 마지막 날, 축제의 가장 큰 날에, 행렬이 실로암 연못으로부터 출발하여 성전 뜰을 통과하고, 사제들에 의해 물과 포도주가 제단에 부어진 직후에, 예수는 순례자들 가운데에 서서 말씀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거든, 그를 내게로 오게 하여 마시게 하라. 내가 위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으로 생명수를 가져오고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이 물이 나타내고 있는 영으로 채워질 것이며, 성서의 말 그대로, '그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의 일을 완결하면, 살아 있는 진리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다. 이 영(靈)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적 목마름을 결코 체험하지 않을 것이다."

162:6.2 (1795.6) 예수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 봉사예배를 방해하지는 않았다. 그는 제단 앞에서 나뭇가지들로 물결치듯 흔들고 이어서 시편을 화답하여 읽는 할렐의 찬송 후에, 즉시 경배자들에게 연설하였다. 바로 이 시점은 희생물이 준비되는 동안 잠시 멈추는 순간이었으며, 순례자들이 영에-끓주린 모든 자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선언하는 주(主)의 황홀한 음성을 들은 것은 바로 이때였다.

162:6.3 (1796.1) 이른 아침의 이 봉사예배가 마칠 무렵에 예수는 군중들을 계속하여 가르쳐 말씀했다; "너희가 성서에서: '보라, 물이 마른땅에 부어져서 마른 흙 위에 퍼지는 것과 같이, 내가 거룩함의 영을 너희 자녀들 위에 부어 주어 복을 받게 하고 너희 자녀의 자녀까지도 그리하리라'한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의식(儀式)적인 봉사예배의 깨진 주전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전통을 너희 혼에게 마시도록 하면서, 왜 영의 사명활동을 갈망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일은, 너희 조상들이 신성한 영이 신앙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상징으로 표현한 하나의 방법이며, 너희는 이 상징들을 오늘날까지도 잘 영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영들의 아버지에 관한 계시가 그의 아들의 증여를 통하여 이 세대에게 임하였고,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증여되는 일이 그 다음에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신앙을 가진 자들은 누구에게든지 이 증여된 영이, 영속하는 생명으로, 그리고 땅 위의 하늘의 왕국과 저 먼 곳의 아버지의 파라다이스에 있는 참된 생명수로 인도하는 그 길의 참된 선생이 된다.”

162:6.4 (1796.2) 그리고 예수는 계속하여 군중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믿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에서 온 것과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보좌를 되찾아야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감히 체포하지 못하였다.

제 7 장. 영적 자유에 대한 강론

162:7.1 (1796.3) 축제의 마지막 날 오후, 예루살렘으로부터 피신하도록 사도들이 예수를 설득하는 일이 실패한 후에, 예수는 가르치기 위하여 다시 성전으로 가셨다. 솔로몬 행각에 매우 많은 신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했다:

162:7.2 (1796.4) “만일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한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이다.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내가 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노예가 아닌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외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해방을 뜻하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 묶인-하인이다. 묶여있는 하인은 언제까지나 주인의 집에 거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너희들도 안다. 또한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머물 수 있는 것도 너희가 안다.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여 너희로 아들들이 되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162:7.3 (1796.5)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내가 알지만, 너희의 영도자들은 내 말을 그들의 가슴속에 받아들여 변환하는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들의 혼은 선입견으로 봉해져 있으며 복수심에 불타는 자부심으로 눈이 멀어 있다.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진리를 전파하였지만, 착각에 빠진 이 선생들은 오직 그들의 현세적 아버지들로부터 배운 것들만을 행하고자 한다. 아브라함이 너희의 아버지라고 너희가 대답한다면, 나는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일을 하라고 말하겠다. 너희 중에 나를 믿는 자들도 있지만, 그 나머지는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아들인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진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악한 자의 일을 행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을 내가 안다. 만일 하느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었다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나타낸 진리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과 하느님이 나를 보내신 것과 내가 혼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겠느냐? 왜 나의 말을 납득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악의 자녀가 되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이냐? 만일 너희가 어두움의 자녀라면, 내가 나타낸 진리의 빛 속에서 걷지 못할 것이다. 악의 자녀들은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속이는 자인 그들 아버지의 길을 따를 뿐이다. 그러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와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살지만,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는다.

162:7.4 (1797.1) “너희가 무엇으로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려느냐? 그러면,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신 진리대로 내가 살면서 선포한다면, 왜 너희는 믿지 않느냐? 하느님의 사람이라면 하느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을 것이다;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너희가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의 선생들은 내가 마귀들의 영주의 힘으로 내 일을 한다고 감히 말한다. 가까이 있던 한 사람은 내가 마귀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 중에 정직하게

생각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내가 마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너희가 나를 경애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아버지를 경애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파라다이스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또한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는데, 그것은 내 대신 심판하실 이가 있기 때문이다.

162:7.5 (1797.2) “내가 복음을 믿는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이 진리의 말을 가슴속에 생생하게 간직하는 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방금 내 옆에 있는 서기관이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죽은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귀가 내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가 물었다: ‘당신의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이 감히 여기 서서 말할 만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보다 당신이 훨씬 더 큰 자인가? 당신이 감히 그런 신성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라고 누가 허락하였는가?’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를 영화롭게 하실 분은 아버지이시며, 그 아버지는 너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이시다. 그렇지만

너희는 너희 하느님, 내 아버지를 아는데 실패하였으며, 너희를 함께 데려가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 너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정말로 그를 안다.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기를 즐거워하였으며, 신앙으로 그것을 보고 기쁨으로 향유하였다.”

^{162:7,6 (1797.3)}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과, 이 말을 듣고 이 무렵에 소집된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외쳤다: “네 나이가 오십도 못되었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하니; 너는 마귀의 자식임이 틀림없다!” 예수는 강연을 더 계속할 수가 없었다. 다만 그 자리를 떠나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존재한다.”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달려들었으며, 산헤드린에서 보낸 자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는 즉시 성전 복도를 통하여 나가셔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기다리고 있는 베다니 근처의 비밀 회합장소로 피하였다.

제 8 장.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와의 대화

162:8.1 (1797.4) 예수는 나사로 그리고 그의 자매(姉妹)들과 함께 친구의 집에 유숙하고, 사도들은 여기저기에 몇 명씩 흩어지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를 체포(逮捕)하려는 계획을 다시 실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다.

162:8.2 (1797.5) 이들 세 사람은 예수가 방문할 때마다 모든 일을 멈추고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지난 수 년 동안의 관례였다. 그들은 부모를 여의었기 때문에, 마르다가 가사를 책임지다시피 하였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으므로, 나사로와 마리아가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신선한 가르침에 흠뻑 젖어있는 동안, 마르다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였다. 마르다가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일들로 괜히 산란해 있었고, 많은 하찮은 걱정들로 방해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그녀의 기질이었다.

162:8.3 (1798.1) 마르다는 의무라고 생각한 이 모든 일들로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면서, 마리아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므로 심사가 불편해졌다. 그리하여 그녀는 예수께 가서 말했다; “주(主)여, 음식 준비하는 이 모든 일을 저

혼자서 하도록 모른 채하는 제 동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제 동생에게 저를 도와주라고 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는 대답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왜 항상 그토록 많은 것들로 염려하고 그 많은 하찮은 일들로 걱정하느냐? 실제로 가치 있는 것이라면 오직 한 가지라도 족하며, 마리아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쪽을 선택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되어야 너희 둘이 나의 가르침대로 살게 되어서; 음식 만드는 일도 같이하고, 화합하여 너희 둘의 혼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되겠느냐?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 일생에 있어서 보다 덜 중요한 것들은 하늘왕국의 더욱 위대한 일들 앞에서 양보해야만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하겠느냐?

제 9 장. 베들레헴에서 아브너와 함께

162:9.1 (1798.2) 천막축제 바로 다음의 한 주일 동안, 많은 신자들이 베다니에 모여서 열 두 사도들로부터 안내를 받아들였다. 산헤드린은 예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임을 방해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예수는 아브너 그리고 그의 함께 일하는 자들과 베들레헴에서 활동하였다. 축제가 끝난 다음 날 예수는 베다니로

가셨으며, 예루살렘 방문이 끝날 때까지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지 않았다.

^{162:9.2 (1798.3)} 이 때, 아브너는 베들레헴에 그의 본부를 차리고 있었고, 그 중심지로부터 유대의 도시들과 남부 사마리아 그리고 심지어는 알렉산드리아까지 많은 일꾼들을 보낸 후였다. 그가 도착한 지 며칠 안에, 예수와 아브너는 두 집단의 사도들의 일이 통합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완벽하게 취하였다.

^{162:9.3 (1798.4)} 천막축제에 방문한 기간 동안 예수는 베다니와 베들레헴에서 거의 반반씩의 시간을 보내셨다. 예수는 베다니에서 사도들과 매우 의미심장한 시간을 보내셨으며; 베들레헴에서는 아브너를 비롯하여 전에 세례자 요한의 사도였던 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 마침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 깊은 교제를 통해서였다. 전에 세례자 요한의 사도들이었던 이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친 그 용기에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한 사적(私的)인 가르침 속에서 체험된 깊이 공감하는 압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이 영향들은 아브너의 연관-동료들 각자를

최종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사로잡아서 전심으로 왕국과 그에 함축된 진보를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162:9.4 (1798.5)}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주(主)는 이 땅에서의 육신적 삶을 끝내기에 앞서서 연합된 운동에 자기와 함께 동참하도록 그들 모두를 준비시키셨다. 아브너와 그의 연관-동료들은 빠른 시일 내에 마가단 공원에서 예수 그리고 열 두 사도들과 합류할 것에 동의하였다.

^{162:9.5 (1798.6)} 이 약속에 따라서, 11월 초에 아브너와 그를 따르는 열 한 명은 예수 그리고 열 두 사도들과 운명을 같이하기로 결심하였으며,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 하나의 조직으로써 그들과 함께 사명활동하였다.

^{162:9.6 (1798.7)} 10월 후반부에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곳에는 가지 않았다. 10월 30일, 일요일에, 예수와 그의 일행들은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예수가 홀로 며칠 동안 쉬셨던 그 도시를 떠나서, 요단 큰 길 서쪽을 지나 곧바로 마가단 공원으로 갔으며, 11월 2일 수요일 오후 늦게 도착하였다.

^{162:9,7 (1799.1)} 사도들은 주(主)가 그들에게 우호적인 지역으로 돌아오신 것에 대하여 크게 안심이 되었다; 예루살렘에 가서 왕국 복음을 전파하자고 더 이상 주(主)께 요청하지 않았다.

제 163 편 마가단에서의 70인 성직-임명

^{163:0.1 (1800.1)}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에, 아브너와 약 50명의 제자들 무리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도착하였다. 이 때 마가단 야영지에는 전도자 대원들, 여자 대원들, 그리고 약 150명이나 되는 진실하고 믿을만한 다른 제자들이 팔레스타인 각 지역으로부터 모여 있었다. 며칠 동안 야영지를 둘러보시고 재정비한 후에, 예수는 열 두 사도들과 함께 이 특별한 신자들 무리에게 일련의 집중적인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주(主)는 그 후에 이렇게 잘 훈련되고 숙련된 제자들 집단으로부터 70명의 선생들을 선정하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들을 내보내셨다. 정규적(正規的)인 이 훈련은 11월 4일, 금요일에 시작되었으며, 11월 19일 안식일까지 계속되었다.

163:0.2 (1800.2) 예수는 이 대원들에게 매일 아침 말씀하였다. 베드로는 대중 설교 방법을 가르쳤으며; 나다니엘은 가르치는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도마는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마태는 그들의 전체 재정에 관계된 체제를 감독하였다. 나머지 다른 사도들도 자신들의 특별한 체험과 선천적인 재능에 따라서 이 훈련에 동참하였다.

제 1 장. 70 인의 임명식

163:1.1 (1800.3) 그 70인은 11월 19일, 안식일 오후에 예수에 의해 마가단 야영지에서 사도임명을 받았으며, 아브너는 이 복음 전도자들과 선생들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70명의 이 대원들은 이전에 세례자 요한의 사도였던 아브너와 다른 10명, 전에 전도자들이었던 51명, 그리고 왕국 봉사에서 돋보였던 다른 8명의 제자들로 구성되었다.

163:1.2 (1800.4) 이 안식일 오후 2시경, 비가 오는 사이에, 다윗과 그의 메신저 무리단의 대부분이 증강되어 400명이 넘는 신자들 무리가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서 그 70인의 임명식을 지켜보았다.

예수는 그 70인을 복음 전달자로 보내기 위해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기 전에, 그들에게 강론하여 말씀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추수의 주님에게 그의 추수 현장에 다른 일꾼들을 더욱 더 보내주시도록 기도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나는 이제 곧 너희를 왕국의 메신저들로서 보내려고 한다; 이리 떼 속에 있는 양들처럼 너희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너희를 보내려고 한다. 너희는 둘씩 짝을 지어서 출발하고, 이 첫 번째 전도는 오직 잠시 동안만 실행될 것이니 지갑이나 여분의 옷을 지니고 가지 말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오직 너희 일에만 있으라. 어느 집에 머물게 될 때에는 언제나 먼저 이 가정에 평화가 있으라고 말하라. 만일 그들이 그 곳에 평화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면, 너희는 그곳에 머물도록 하라; 만일 그렇지 않거든 떠나라. 이러한 집을 선정하여, 너희가 그 도시에 있는 동안 그곳에 머무르고,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내놓는 것을 먹고 마시도록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일꾼이 자기 양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더 나은 숙소가 제공된다하여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땅에 평화와 사람들 가운데 선한 뜻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사악하고 자아-기만에 빠진 적들과 결코 대항하지 말 것이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되, 동시에 비둘기 같이 해를 끼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163:1.4 (1801.1) “그리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전파하여 말하기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하고, 마음이나 또는 육체가 병든 모든 자를 보살펴 주어라. 너희가 왕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만일 어느 도시의 사람이든지 너희를 환영하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갈 자가 많을 것이나; 만일 어느 도시의 사람이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무리들을 떠날 때에도 여전히 너희 메시지를 전파하며, 그때까지도 너희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당신들이 진리를 거부할지라도, 하느님의 왕국은 여전히 당신들 곁에 있다.’고 말하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나의 말을 듣는 자이다. 그리고 나의 말을 듣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의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가 전파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는 나를 거부하는 자이다. 그리고 나를 거부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를 거부하는 자이다.”

163:1.5 (1801.2) 예수는 70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예수를 중심으로 둥글게 무릎을 꿇은 그들에게 아브너로부터 시작하여 각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163:1.6 (1801.3)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너는 70인의 메신저들을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지역의 모든 도시들로 보내었다. 그리하여 이 35쌍의 메신저들은 6주 동안 전파하고 가르쳤으며, 12월 30일, 금요일에 페레아 지역에 있는 펠라 근처의 새 야영지로 모두 돌아왔다.

제 2 장. 부자 청년과 다른 사람들

163:2.1 (1801.4) 70인 중의 하나로 지정되어 사도임명을 받으려고 하였던 50명 이상의 제자들은, 이 후보자들을 선정하도록 예수가 임명한 위원회에 의하여 거부되었다. 이 위원회는 안드레, 아브너, 그리고 전도자 대원들 중에서 임시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었다. 세 사람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그 후보자를 예수께로 데려갔는데, 주(主)는 복음의 메신저로서 사도임명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도 거부하지 않았고, 12명 이상은 예수와 이야기하고 나서 복음의 메신저가 되기를 더 이상 바라지 않았다.

163:2.2 (1801.5) 진지한 한 제자가 예수께 와서 말했다; “주(主)여, 저도 당신의 새로운 사도들중의 하나가 되고자 하지만, 저의 아버지가 매우 나이가 많아서 거의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 장사지내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수가 이 사람에게 말씀했다; “내 아들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는 신실한 제자이고, 네가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려고 집에 돌아가서 제자로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내 복음의 메신저들은 그럴 수가 없다. 그들은 나를 따르고 왕국을 선포하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있다. 만일 네가 사도임명 받은 선생이 되려거든 너는 좋은 소식을 널리 알리려 나아가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죽은 자를 다른 사람이 묻도록 해야 한다.” 이 사람은 크게 실망하여 떠나갔다.

163:2.3 (1801.6) 다른 제자가 주(主)께 와서 말했다; “저는 사도임명 받은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만, 집에 가서 잠시 동안만 가족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네가 만일 사도임명을 받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만 한다. 복음의 메신저들은 오직 한 가지에만 애착심을 가져야 한다. 손에 쥘 것을

잡고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그 누구라도 왕국의 메신저가 되기에 마땅치 않다.”

163:2.4 (1801.7) 그 때 안드레가 어떤 부자 청년을 예수 앞으로 데려 왔는데, 그는 믿음이 깊은 신자였으며, 사도임명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 마타돌무스라 하는 이 젊은이는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회원이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곧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로부터 왕국 복음을 배워 왔었다. 예수는 사도임명 받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마타돌무스에게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좀더 깊이 생각할 때까지 결정을 늦추도록 요청하였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가 산보하고 계시는데 이 젊은이가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다; “주(主)여, 저는 당신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들을 확실히 지켰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가 대답했다; “만일 네가 모든 계명들을 지켰다면—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잘하였다. 그러나 구원은 신앙에 대한 보상이지 단지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너는

이 왕국 복음을 믿느냐?” 마타돌무스가 대답하였다. “예, 주(主)여, 당신과 당신의 사도들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믿습니다.” 예수가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너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며 왕국의 자녀이다.”

163:2.5 (1802.1) 그러자 그 젊은이는 말했다; “그렇지만 주(主)여, 저는 당신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당신의 새로 임명되는 메신저들 중의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는 이 말을 들으시고, 깊은 사랑으로 그를 내려다보시며 말씀했다; “만일 네가 기꺼이 그 값을 치른다면, 만일 네가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운다면, 너를 메신저들 중의 하나로 삼겠다.” 마타돌무스가 대답하였다. “주(主)여, 당신을 따르도록 허락한다면 제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예수는 무릎을 꿇고 있는 젊은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시고 말씀하였다. “만일 네가 나의 메신저가 되고 싶으면, 가서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이나 네 형제들에게 수입을 나누어주고, 와서 나를 좇으면, 하늘의 왕국에서 보화를 갖게 될 것이다.”

163:2.6 (1802.2) 마타돌무스는 이 말씀을 듣고,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 부자 청년 바리새인은 재물이 하느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믿도록 배워왔다. 예수는 청년이 자기 자신과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셨다. 주(主)는 재물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그를 구해주고 싶어 하였던 것이지, 반드시 모든 재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였던 것은 아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의 모든 세상 물질들을 내놓지 않았지만, 사도들과 70인은 그렇게 하였다. 마타돌무스가 새로 임명된 70인의 메신저들 중의 하나가 되고자 할 때, 예수가 그에게 모든 현실적 소유를 버리라고 요구한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163:2,7 (1802.3) 거의 모든 인간 존재는 하늘의 왕국 입구에서,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로 내놓도록 요구되는, 어떤 총애하는 악한 것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만일 마타돌무스가 그의 재물을 내어 놓았다면, 아마도 70인의 재물의 회계로, 그의 손에 관리-행정을 바로 다시 넘겨졌을 것이다. 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후, 그는 주(主)의 명령에 복종하였으며, 70인의 일원이 되는 기쁨을 맛보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감사가 되었으며, 교회는 주님의 육신 형제인 야고보가 대표하였었다.

163:2.8 (1802.4) 항상 그랬으며 또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그러할 것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유 선택의 범위가 어느 정도 주어져 있다. 영적 세계의 기세들은 사람을 강압하지 않는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으로 길을 가도록 허용한다.

163:2.9 (1802.5) 마타돌무스가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서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의 연관-동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는 미리 아셨으며; 동시에, 재물을 버린다면 그가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 영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셨다. 그러나 예수의 친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그 청년은 결코 왕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때에 행하려고 하였다면 그의 체험이 될 수도 있었던, 주(主)와의 친밀하고도 개인적 교제를 스스로 빼앗았기 때문이다. 예수가 요구하였던 바로 그 일을, 그 후에 몇 년이 지나서, 그는 실재로 하였다.

163:2.10 (1803.1) 부유한 것 자체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관계가 있다. 왕국에 대한 영적 충성심은 물질적인 부(富)에게

노예가 된 상태와 양립할 수 없다. 사람은 영적 이상(理想)에 대한 최극 충성심을 물질적 신앙과 함께 나눌 수 없다.

163:2.11 (1803.2) 예수는 재물을 갖는 것이 그릇되었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 예수는 오직 열 두 사도들과 70인에게만 공동 목적에 사용되도록 그들의 모든 세상 재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였다. 그 경우에도 사도 마태의 경우처럼, 그들이 소유를 정리할 때 이익이 생기도록 하라고 규정하였다. 예수는 부유한 제자들에게, 로마의 부자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여러 번 충고하였다. 예수는 초과 소득을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이 미래의 피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한 보험으로써 합리적인 형태라고 보셨다. 사도들의 기금이 넘칠 때에는, 후에 수입이 줄어서 크게 고통을 당할 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다가 자금을 예치해 두었다. 이 유다는 후에 안드레와 협의를 하였었다. 예수는 구호금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도들의 재정에 개인적으로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예수가 여러 번 책망한 한 가지의 경제적 폐단이 있었는데, 강하고 훌륭하며 지식적인 동료들에 의해서, 약하고 배우지 못하였으며 행운이 덜 따랐던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착취당한다는

것이였다.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러한 비인간적인 대접은 하늘의 왕국의 형제신분의 이상(理想)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예수가 선언하였다.

제 3 장. 재물에 대한 토론

^{163:3.1 (1803.3)} 예수가 마타돌무스와의 대화를 끝낼 때까지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그의 옆에 모여 있었으며, 부유한 청년이 떠나자 예수는 사도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했다; “부자가 온전히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았느냐! 영적 경배는 물질적 신앙과 함께 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교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선천적으로 지니기 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더욱 쉽다’는 속담을 너희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선포하는 것은, 이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은 이들 자아-충족된 부유한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만큼 쉽다는 것이다.”

^{163:3.2 (1803.4)}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랐고, 베드로는 더욱 그러하여 말했다;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부유함을 지닌

자들은 모두 다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베드로야, 그렇지 않다. 그러나 재물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진보로 인도하는 영적 일생에 도저히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사람에게 불가능한 많은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다다름이 있는 곳을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깨달아야만 한다.”

163:3.3 (1803.5) 그들이 자기들끼리 나가면서 예수는 마타돌무스가 그들과 함께 남지 않은 것을 몹시 슬퍼하였는데, 이는 예수가 그를 무척 사랑하였기 때문이었다. 호숫가로 걸어 내려가 그 곳 물가에 앉았을 때 (이 때가 되어서 모두 거기에 있던) 열 두 사도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말했다;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한 것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과연 당신을 따르려 하는 자들에게 세상 재물들을 다 버리라고 우리가 요구해야만 합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베드로야, 그렇지 않다. 오직 사도가 되려는 사람들과 너희들처럼 한 가족으로서 나와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들뿐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의 사모하는 가슴이 순수하고 나뉘지지 않기를 요구한다. 왕국의 진리들을 사랑하는

것과 너희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또는 누구든지 버려야만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의 중심이 물질로 인하여 파괴되지 않는다면,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왕국에 들어갈 사람의 영적 일생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163:3.4 (1804.1) 그러자 베드로가 물었다. “그렇지만 주(主)여, 우리가 당신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떠나서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됩니까?” 예수가 열 두명의 모두에게 말씀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를 위하여 그리고 하늘의 왕국을 위하여 재물, 가정, 아내, 형제, 부모, 또는 자녀들을 떠나 온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다양하게 더 많은 것을 받되, 아마도 박해와 함께 받아들일 수도 있으며, 다가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아니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인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될 것이며, 반면에 마지막인 자가 흔히 첫째가 될 것이다. 아버지는 창조체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우주의 복지를 위한 자비롭고도 사랑 넘치는 고려로 이루어진 자신의 공정한 법에 복종하여, 그들을 다룬다.

163:3.5 (1804.2)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나간, 많은 사람을 고용한 집주인과 같다. 그는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지불하기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아홉 시 무렵에 다시 나가,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보자,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도 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정당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지불하겠다.' 그들도 즉시 일하러 갔다. 그는 열 두 시와 세 시 무렵에 또 나가서 똑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다섯 시쯤 되어서 장터에 나갔는데, 아직도 거기에 빈둥거리며 서 있는 다른 이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왜 여기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서 있느냐?' 그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이 말했다; '너희도 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정당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지불하겠다.'

163:3.6 (1804.3) "저녁이 되자, 이 포도원 주인이 하인들을 불러 말했다; '일꾼들을 모두 불러서 임금(賃金)을 지불하되, 제일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하고 처음 고용된

사람은 제일 나중에 지불하라.’ 다섯 시에 고용되었던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 다른 일꾼들도 똑같이 받았다. 그날 아침 일찍 고용되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온 자들이 어떻게 받는 것을 보고, 합의(合意)된 액수보다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 데나리온씩 밖에 받지 못하였다. 임금을 다 받고 나자, 그들이 불평하여 말했다; ‘마지막에 고용된 자들은 오직 한 시간 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작렬하는 태양 안에서 하루 종일 짐을 졌던 우리들과 똑같이 주셨습니다.’

163:3,7 (1804.4) “그러자 그 집주인이 대답했다; ‘나의 친구들이여, 나는 너희들에게 그 어떤 그릇된 일을 하지 않는다. 너희들 각자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합의하지 않았느냐? 즉시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마지막에 온 자들에게도 너희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기 때문이다. 내 소유를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내가 선택하기를 원하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나의 관대함을 아까워하느냐?’

제 4 장. 70인과의 작별

163:4.1 (1804.5) 70인이 첫 번째 전도를 나가는 마가단 야영지에서의 그 날은 감동적이었다. 그 날 이른 아침, 70인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하였다:

163:4.2 (1804.6) 1. 왕국의 복음은 반드시 모든 세상,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163:4.3 (1804.7) 2. 아픈 자에게 사명활동하면서, 기적을 기대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삼가라.

163:4.4 (1805.1) 3. 세상에서의 권력과 물질적인 영화의 외적인 왕국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들의 영적 형제신분을 전파하라.

163:4.5 (1805.2) 4. 전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외의 다른 일에 주의를 돌리도록 하는 과도한 사교적인 방문이나 다른 사소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라.

163:4.6 (1805.3) 5. 만일 어떤 집이 먼저 본부로 삼기에 적당한 것으로 판명이 되면, 그 도시에 머무는 동안 그 집에 머물러라.

163:4.7 (1805.4) 6.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영도자들과 이제 공개적으로 갈라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모든 신실한 신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라.

163:4.8 (1805.5) 7. 사람이 해야 할 모든 의무가 이 하나의 계명 속에 함축되어 있음을 가르치라: 너희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너희의 모든 마음과 혼으로 사랑하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바리새인들이 설명하는 삶의 613가지 규칙들 대신에,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의 모든 것이라고 가르쳤다.)

163:4.9 (1805.6)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의 현존 가운데서, 예수가 그 70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마치셨을 때, 시몬 베드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임명식 설교를 그들에게 하였는데, 그 설교는 주(主)가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왕국의 메신저들로서 떠나도록 했었을 때 주신 명령을 공들여 다듬은 것이었다. 베드로는 70인들에게 그들의 체험에서 다음과 같은 덕목을 깊이 간직하라고 강력히 권했다:

163:4.10 (1805.7) 1. 헌납하는 헌신. 더 많은 일꾼들을 복음의 추수를 거두는 일에 보내지도록 항상 기도할 것.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좀 더 알맞은 것이리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들의 일상적인 경배를 게을리 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충고하였다.

163:4.11 (1805.8) 2. 참된 용기. 그들이 적을 만날지도 모르며 박해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였다. 그들의 임무가 소심한 사람들에게는 적합지 않다고 베드로는 말하였으며, 두려운 사람은 떠나기 전에 물려서라고 충고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물려서지 않았다.

163:4.12 (1805.9) 3. 신앙과 신뢰. 그들은 이 짧은 기간의 전도 여행에 전혀 아무 도움도 없이 임해야만 하였다; 음식과 잠자리 그리고 다른 모든 용품들을 아버지께서 공급하실 것을 신뢰해야만 하였다.

163:4.13 (1805.10) 4. 열의와 진취성. 그들이 열의와 지적인 열심을 지니고 있어야만 하고; 엄격하게 주(主)의 일에만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동양식 인사는 길고도 정성을 들이는 예식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것은 급히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방법이였다.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163:4.14 (1805.11) 5. 친절함과 공손함. 주(主)는 그들에게 사교적인 격식들에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지만, 그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손하라고 명하였다. 자기 집에서 그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을 매우 친절하게 대해야만 하였다. 더 안락한 곳에서 대접받기 위하여 또는 권력을 가진 자로부터 대접받기 위하여 겸손히 대하는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엄격히 경고를 받았다.

163:4.15 (1805.12) 6. 병자를 돌볼 것. 육신과 마음이 병든 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질병을 고치거나 차도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동원하라고 베드로가 70인에게 명하였다.

163:4.16 (1805.13) 모든 설명과 지시가 다 끝난 후 그들은 둘씩 짝을 지어,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의 전도를 위해 출발하였다.

163:4,17 (1806.1) 유대인들은 70이라는 숫자를 특별히 여겼고 때로는 이교도의 나라들을 70이라는 숫자가 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70인의 메신저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 무리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70이 된 것은 오직 우연이었을 뿐이었다. 예수는 6명 이상의 다른 사람들을 더 받아들이려 하였던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은 그 대가로서 재물과 가족을 떠나는 것을 싫어하였다.

제 5 장. 야영지를 펠라로 옮김

163:5.1 (1806.2) 이 때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은 페레아 지역에서의 마지막 본부를 설치할 준비를 하였으며, 그곳은 펠라에서 가까웠는데 전에 주(主)가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신 곳이었다. 11월의 마지막 10일 동안은 마가단에서 여러 가지 협의로 시간을 보내었으며, 12월 6일 화요일에는 300명 정도 되는 모든 일행들이 펠라에서 가까운 강 옆에서 그 밤을 지내기 위해 새벽에 출발하였다. 우물 옆에 있는 이 장소는 몇 년 전에 세례자 요한이 야영지를 설치하였던 곳이었다.

마가단의 야영지를 철거한 후, 다윗 세베대는 벳세다로 돌아가서 즉시로 메신저 봉사를 축소시키기 시작하였다. 왕국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팔레스타인의 여러 지역들은 물론 심지어 로마제국의 먼 지방으로부터 순례자들이 매일같이 도착하였다. 믿는 자들이 때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으며 티그리스 동쪽 땅에서도 왔다. 따라서 12월 18일 일요일에, 다윗은 메신저 무리단의 도움으로 야영지 도구들을 운송용 짐승들에게 실려 운송하여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져가, 전에 호숫가 벳세다의 야영지를 수행하였던 것들과 함께 보관해 두었다. 당분간 벳세다를 떠나면서, 그는 호숫가로 내려가 요단을 따라가서 사도들 야영지가 있는 곳으로부터 약 1.5마일 북쪽 지점에 도착하였다; 약 1,500명이나 되는 순례자들을 접대할 준비를 하면서 한 주일 가량을 보내었다. 사도들의 야영지는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이 때 팔레스타인에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었고, 계속 증가하는 방문객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이 숙박 설비들이 필요하였으며, 이들은 예수를 만나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페레아에 온 매우 진지한 사람들이었다.

163:5.3 (1806.4) 다윗은 마가단에서 빌립과 마태와 상의한 적이 있었지만, 모든 이것을 스스로의 술선수범에서 하였다. 그는 전에 메신저 무리단이었던 사람들 대부분을 이 야영지를 수행하는 일에서 그의 조력자로 고용하였다; 정기적인 메신저 임무에는 20명 미만의 사람들만 배치하였다. 12월 마지막 무렵, 그 70인이 돌아오기 전에, 거의 800명의 방문자들이 주(主)의 곁에 몰려들었으며, 다윗이 지은 야영지에서 기거하였다.

제 6 장. 70인이 돌아옴

163:6.1 (1806.5) 12월 30일 금요일에, 예수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근처에 있는 언덕에 가 계신 동안, 70인의 메신저들이 둘씩 짝지어서 펠라에 있는 본부에 도착하였으며, 믿는 자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왔다. 예수가 돌아오신 것은 다섯 시 가량 되었을 때인데, 70인은 모두가 가르치는 장소에 모여 있었다. 저녁 식사가 한 시간 이상 지체되는 동안, 왕국 복음에 열정적이었던 이들은 자기들의 체험을 이야기하였다. 다윗의 메신저들이 지난 몇 주일 동안에도 이 소식들의 대부분을 전해 주기는 하였지만, 새로 사도임명 받은 이 선생들로부터 그들의 메시지가 굶주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를 생생하게 듣는 것은 정말 가슴이 설레는 일이었다. 예수는 마침내 자신의 개인적 현존이 없이도, 사람들이 나아가 복음을 퍼뜨리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었다. 주(主)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신다 해도 왕국의 확장에 중대한 위기가 없게 되었음을 아셨다.

163:6.2 (1807.1) 70인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귀신들까지도 복종”하였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신경 장애에 걸린 사람의 경우에 자기들이 일으킨 놀라운 치료를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실제로 악령에 사로잡혔다가 이 사명활동자들에 의해 놓여난 경우가 몇 번 있었으며, 예수는 이것들에 대하여 말씀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쩍이면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이 불순종의 미숙한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기쁨으로 향유하지 마라. 왜냐하면 소수의 이 잃어진 영들이 불행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마자 우리가 우리의 영들을 사람들의 바로 그 마음속에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대하여 힘을 가지게 된 것을 내가 너희에 대하여 기쁨으로 향유하지만, 이 체험 때문에 들뜨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과, 그리하여 영적으로 정복해 나갈 끝없는 생애로 나아가게 된 것을 기쁨으로 향유하라.”

163:6.3 (1807.2) 예수는 이 때 저녁 식사를 나누기 바로 전, 추종자들이 드물게 목격한 바 있었던, 감정적 환희의 그런 진기한 순간들 가운데 하나를 체험하였다. 예수가 말씀했다; “나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여,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지혜로운 자들과 자아-정의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면서, 영이 이들 영적 영광을 왕국의 자녀에게 계시하여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당신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께 돌아간 후에도 좋은 소식들이 모든 나라에 퍼지게 될 것을 알기에 그리고 당신이 내게 이행하라고 하신 그 일이 실행된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기쁩니다. 당신이 모든 권세를 내 손에 맡겨주시려 하고, 오직 당신만이 제가 누구인지 참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오직 나만 정말로 당신을 알고 있고, 또한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당신을 계시하였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힘차게 감동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 가운데에서 내 형제들에게 주는 이

계시를 완결한 후에도, 높은 곳에서 당신의 창조체들에게 계속 계시할 것입니다.”

163:6.4 (1807.3) 예수가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한 후에, 사도들과 사명활동자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했다; “이런 일들을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복이 있다. 많은 선지자들과 지나간 여러 시대의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앞으로 오는 많은 세대에 걸쳐서 빛의 자녀들이 이 일들을 들었을 때, 그것들을 직접 듣고 본 너희를 부러워할 것이다.”

163:6.5 (1807.4) 그러시면서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했다; “너희는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왕국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를 들었으며, 내가 보낸 성직자들과 교사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어떻게 환영 받았는지를 들었다. 왕국의 복음을 믿기로 작정한 이 공동체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 그러나 빛을 거부하는 코라진과 벳세다-줄리아스 그리고 가버나움의 주민들에게는 화가 있으라. 그 도시들은 이 메신저들을 반갑게 환영하지 않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곳에서 행한 기적이 티레와 시돈에서 행해졌더라면, 이방인의 도시라고 불리는 그 곳의

사람들은 오래 전에 깊이 뉘우쳐 회개하였을 것이다.
심판의 날에는 티레와 시돈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163:6.6 (1807.5)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는 70인을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했다; “나는 너희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전역에 흩어져 있는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했다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때 정말로 기쁨을 향유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왜 그토록 놀랍게도 의기양양하였느냐? 너희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힘이 현시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 효력성에 놀라서 돌아올 만큼 이 복음을 거의 믿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더냐?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의 영적 기쁨을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 영적 자부심의 흥계들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만일 루시퍼, 사악하게 불의한 자의 멸망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어떤 형태의 영적 자부심이라도 진지하게 피했을 것이다.

163:6.7 (1808.1) “사람에게 그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 위대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었다; 너희의 임무에 충실하고

선행을 하는데 싫증내지 말라고 하였다. 너희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너희 뒤를 따라 올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겠는데: 나는 항상 곁에 서 있으며, 지금과 앞으로
영원토록 내가 초청할 것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쉬게 해 줄 것이다.
나는 진실하고 충성스러우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지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혼을 위한 영적 안식처를
발견할 것이다.”

163:6.8 (1808.2) 그리고 그들이 주(主)의 약속들을 시험해 보았을
때, 그 말씀들이 참말이었음을 발견하였다. 그 날로부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도 또한 이 약속을 시험해
보았고 그 약속이 확실함을 증명했다.

제 7 장. 마지막 사명임무를 위한 준비

163:7.1 (1808.3) 그 다음 며칠 동안은 펠라 야영지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었다; 페레아인 전도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 예수와 그의 일행들은 세 달 동안 페레아 전
지역에서의 마지막 전도 여행에 들어갔으며, 예수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수고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의 본부는 이 곳 펠라 야영지에 유지되었다.

163:7.2 (1808.4) 예수는 더 이상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멀리 가실 필요가 없었다. 이제는 그들이 예수께로 왔으며 매주마다 숫자가 늘어났고,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로마 지역과 근동(近東)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사람들이 왔다. 주(主)는 페레아 전도여행에 70인과 함께 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펠라 야영지에서 보내셨으며, 군중들을 가르치시고 열 두 사도들에게 설명하였다. 이 세 달의 전 기간 동안 적어도 열 명의 사도들은 예수와 함께 머물렀다.

163:7.3 (1808.5) 여자 대원들도 페레아의 큰 도시들에서 사명활동하기 위하여 70인과 함께 둘씩 짝지어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였다. 여자 대원들은 원래 12명이었으나, 최근에 50명의 많은 여자 대원들이 가정 방문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병자와 고통 받는 자들을 돌보는 기술을 위하여 훈련을 받았었다. 시몬 베드로의 아내인 퍼페투아는 새로 구성된 여자 대원들의 일원이 되었으며 아브너 밑에서 여자들의 확대된 업무를 지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다. 오순절 이후에 그녀는 유명해진 남편과 함께 모든 선교 여행에 동행하였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날, 그녀도 경기장 안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었다. 새로 구성된 이 여자 대원들 중에는 빌립과 마태의 아내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있었다.

163:7.4 (1808.6) 이제 왕국의 일은 예수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마지막 위상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이 위상은 갈릴리에서 인기를 누렸던 지난 날 동안 주(主)의 뒤를 따르면서 기적을 바라고 이적을 찾아다니던 군중들과는 대조적으로 영적 깊이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물질적인 가슴에 사로잡힌 자들과, 하느님의 우주 아버지신분이라는 영원한 사실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영적 형제신분 속에 하늘의 왕국이 존재한다는 진리를 파악하지 못한 자들이 매우 많이 있었다.

제 164 편 봉헌 축제에서

164:0.1 (1809.1) 야영지가 펠라에 세워지자, 예수는 나다니엘과 도마를 데리고 비밀리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봉헌 축제에 참가하였다. 요단을 지나 베다니 시냇가에 도착해서야 두

사도들은 주(主)가 예루살렘에 가시려는 것 알게 되었다. 봉헌 축제에 예수가 실제로 모습을 나타내시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아주 진지하게 간청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단념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소용이 없었다; 예수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이 여러 번 간청하고, 산헤드린의 손에 자신을 넘겨주는 어리석음과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경고를 하였지만, 예수는 오직 "나의 때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선생들에게 빛을 볼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대답하실 뿐이었다.

164:0.2 (1809.2)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두 사도들은 자기들의 두려운 느낌을 계속하여 표현하였으며, 분명히 억측으로 장담하는 듯한 그러한 지혜에 대하여 그들의 의심을 계속 표명하였다. 그들은 4시 반경에 여리고에 도착하여 밤을 보낼 숙소를 예비하였다.

제 1 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164:1.1 (1809.3) 그날 저녁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그 두 사도들에게 질문하려고 모여들었는데, 많은 부분은 제자들이 대답하였고, 어떤 것들은 주(主)가 상세히

논하였다. 이 때 어떤 율법사들이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는 논쟁을 하기 위하여 말했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수는 대답하기를, “율법과 예언서들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다; 너는 그 성서를 어떻게 읽느냐?” 그 율법사는 예수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했다; “가슴과 혼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가 말씀했다; “네가 대답을 잘하였다. 만일 네가 실제로 그렇게 하면, 영속하는 일생으로 인도될 것이다.”

164:1.2 (1809.4) 그러나 그 율법사는 전적으로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으며,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를 난처하게 만들기 위하여 시험 삼아 다른 질문을 던졌다. 주(主)에게 좀 더 다가가서 말하기를, “그렇지만 선생님, 누가 제 이웃인지 말해주시겠습니까?” 그 율법사는 이웃을 “자기 민족의 자녀들”로 규정하는 유대인 법에 위반되는 대답을 예수가 하도록 하여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에서 이 질문을 하였다. 유대인들은 모든 다른 민족들을 “이방의 개들”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 율법사는 예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주(主)가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대답하리라는 것을 잘 알았다; 그리하여 예수를 유도하여, 신성한 율법을 공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것을 말씀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164:1.3 (1810.1) 그러나 예수는 율법사의 의도를 아시고, 그 함정에 빠지는 대신에, 청중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하였는데, 그 이야기는 예리고에서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호감을 가질 만한 것이었다. 예수가 말씀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는데, 무자비한 산적에게 붙들려서, 모두 빼앗기고 옷도 벗겨져졌으며 매를 맞아 반쯤 죽게 된 상태에서 버려졌다. 바로 그때 우연히 어떤 사제가 그 길을 가다가 부상당한 그 사람에게 와서 심히 비참한 상태인 것을 보고 그 길의 다른 편 쪽으로 지나 가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와서 보고는 다른 편으로 지나 가버렸다. 이때, 어떤 사마리아인이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부상당한 사람에게 다가왔다; 그가 어떻게 강탈을 당하고 얻어맞았는가를 보고서, 연민이 우러나와,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어 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신의 가축 위에 그 사람을 태워 여기 주막으로 데려와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돈을 얼마큼 꺼내어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제 친구를 잘 보살펴 주시고, 혹시 경비가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네게 묻겠다: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산적에게 봉변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었겠느냐?" 그 율법사는 자기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을 알고서 대답하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푸자입니다." 예수는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였다.

164:1.4 (1810.2) 그 율법사가 "자비를 베푸자"라고 대답한 것은, 사마리아인이라는 유쾌하지 못한 말을 쓰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이었다. 예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려고 던졌던 "누가 제 이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바로 그 대답을 율법사가 하게 되었으며, 만일 예수가 그와 같이 대답하였더라면 곧바로 이단으로 고발되었을 것이다. 예수는 그 부정직한 율법사를 난처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청중들에게는 하나의 이야기를 말سم한 결과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훈계였으며, 동시에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그러한 태도를 갖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멋진 꾸짖음이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후에 예수의 복음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 사이에 형제간의 사랑을 촉진시켜 주었다.

제 2 장. 예루살렘에서

164:2.1 (1810.3) 예수는 로마 제국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모인 순례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봉헌 축제에 참석하였었다; 지금은 오직 하나의 목적, 산헤드린과 유대인 영도자들에게 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려고 봉헌 축제에 가셨던 것이다. 예루살렘에 머무른 며칠 동안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금요일 밤 니고데모의 집에서 있었다. 이곳에는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25 명 가량의 유대인 영도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이 무리들 중에는 14 명의, 그전에 또는 새로 임명된 산헤드린 회원들이 있었다. 이 모임에는 이버와 마타돌무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다.

164:2.2 (1810.4) 이 때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모두 학식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들과 두 사도들은 주(主)가 이 저명한 무리에게 한 말씀의 활력과 그 깊이에 경탄하였다. 알렉산드리아와 로마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들에서 가르친 이후로 이때만큼 세속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에서 이토록 박식함을 나타내시거나 사람들의 관련사를 파악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적이 없었다.

164:2.3 (1810.5) 이 작은 모임이 끝나자, 그들은 모두 주(主)의 개인성을 신비로워 하면서, 그의 품위 있는 태도에 매혹되어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들은 산헤드린의 나머지 다른 회원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예수께 조언을 하고자 하였었다. 주(主)는 그들의 모든 제안을 주의 깊게 들었으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주(主)는 그들의 계획들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아셨다. 주(主)는 유대인 영도자들 대부분이 결코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선택의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主)가 나다니엘과 도마와 함께 올리브 산에서 묵으시려고 그 밤에 나가셨을 때에는, 산헤드린의 눈에 띄도록 일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었다.

164:2.4 (1811.1) 그날 밤에 나다니엘과 도마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니고데모의 집에서 들었던 것에 너무도 놀랐기 때문이었다. 전에 그리고 지금 산헤드린의 회원이 된 그들이 70인의 공회원들에게로 가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하여 예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그들은 많이 생각하였다. 주(主)는 말씀했다; “나의 형제들아, 안 된다,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갑절의 분노를 자초할 뿐이며, 나를 향해 품고 있는 그들의 미움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지도하실 방법대로 그들에게 한 번 더 알려줄 것이니, 너희는 각자 가서 영이 인도하는 대로 아버지의 일을 하라.”

제 3 장. 눈이 먼 거지를 고치심

164:3.1 (1811.2)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아침을 먹고 바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마르다의 집으로 갔다. 이 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예수와 두 사도들은 성전에 가까이 갔을 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를 그가 늘 앉아있던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다. 비록 안식일에는 걸인들이 구걸하거나 의연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금지되기는 하였지만, 늘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허용되었다. 예수는 멈추어 서서 그 거지를 내려다 보셨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바라보시다가, 산헤드린과 다른 유대인 영도자들 그리고 종교 교사들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의 자신의 임무를 한 번 더 알려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예수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164:3.2 (1811.3) 예수가 소경된 자의 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몰두할 때, 나다니엘은 이 사람의 눈이 멀게 된 원인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물었다: "주(主)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164:3.3 (1811.4) 랍비들은 날 때부터 소경 된 경우에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가르쳤다. 죄를 품고 태어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이 저지른 어떤 특별한 죄에 대한 형벌로써 소경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또한 그들은 아이를 잉태하는 동안 그 어머니가 지은 어떤 죄 또는 다른 어떤 방종함에 의해서 그러한 결함이 생길 수도 있다고 가르쳤다.

164:3.4 (1811.5) 이 지방 전체에는 환생에 대한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 플라톤과 필로 그리고 에센인의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전(以前)의 유대인 선생들은 사람들이 이전의 실존에서 씨 뿌린 것을 그 사람의 윤회에서 거두게 될 것이라는 이론을 용납했다; 그리하여 이전의 일생 속에서 범한 죄 값을 현재의 일생 속에서

값는다고 믿었던 것이다. 주(主)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혼이 이전의 실존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64:3.5 (1811.6) 어찌되었든지, 그렇게 소경이 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추정하는 모순되는 방향으로 흘러서, 유대인들은 이 눈 먼 거지들에게 동냥을 주는 것이 아주 칭찬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소경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오 인정 많은 분이시여, 소경을 도와주어서 상을 얻으십시오."라고 반복하여 외치는 것은 하나의 풍습이었다.

164:3.6 (1811.7) 예수가 이 문제에 대하여 나다니엘 그리고 도마와 토론을 하고자 한 것은, 유대인 영도자들에게 자기의 임무를 한 번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그 날 하나의 수단으로 이 소경을 사용하기로 이미 결정하였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사도들로 하여금 자연적 또는 영적인 모든 현상들의 참된 원인을 찾도록 항상 용기를 주시고자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예수는 평범한 물질적 사건들에도 영적인 원인을 적용시키려는 일반적인 경향을 피하라고 그들에게 자주 경고하였다.

164:3.7 (1812.1) 예수는 그 날 일을 위한 계획에 이 거지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요시아라는 이름의 그 소경에게 아무 일도 하기 전에, 나다니엘의 질문에 계속하여 대답하였다. 주(主)는 말씀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 그 사람 속에서 현시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사건의 자연적 과정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제 아직 낮일 동안에 나를 보내신 그의 일을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밤이 분명히 올 터인데, 그 때가 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지만, 그러나 오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164:3.8 (1812.2) 대답을 마치시고 나다니엘과 도마에게 말씀했다; “사람의 아들을 고소하기 위하여 찾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되도록 이 안식일 날에 이 소경이 볼 수 있도록 해주자.”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그 소경이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면서, 허리를 구부리시고 땅에 침을 뱉으셔서 침과 흙을 개어 요시아에게 다가가 흙을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눈에 바르시고 말씀했다; “아이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 흙을

씻어라. 그러면 곧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시아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렇게 씻었을 때, 눈이 떠져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로 돌아갔다.

164:3.9 (1812.3) 항상 구걸이나 하면서 그 외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자였지만; 자기 눈이 난생처음 떠진데 대한 흥분이 가라앉자, 그는 늘 동냥을 구걸하던 그 자리로 돌아갔다. 그의 친구들과 이웃들 그리고 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눈이 떠진 것을 보고 모두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눈 먼 거지 요시아가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맞는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다, 그 사람하고 닮기는 하였지만, 이 사람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그 사람에게 직접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내가 그 사람이다.”

164:3.10 (1812.4) 어떻게 해서 볼 수 있게 되었는지를 그들이 묻자, 그는 대답했다;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 친구들과 나에 관하여 말을 하더니, 침과 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내게 지도하였다. 그 사람이 내게 말한 대로 하였더니 즉각적으로 내가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다. 내가 보기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를 고쳐준 이를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를 물었지만, 요시아는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164:3,11 (1812.5)} 이것은 주(主)가 일으키신 모든 기적들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것 중의 하나였다. 이 사람은 고쳐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지도하고 보게 되리라고 약속하는 예수가, 천막축제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설교하였던 갈릴리에서 온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 사람은 자신이 보게 되리라는 것을 거의 믿지 아니하였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위대하거나 거룩한 사람의 침 속에 효험이 있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었다; 예수가 나다니엘 그리고 도마와 나누시는 대화 속에서, 요시아는 어느 위대한 사람, 학식 있는 선생 또는 거룩한 선지자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따라서 예수가 지도한 대로 하였던 것이다.

^{164:3,12 (1812.6)} 예수가 흙과 침을 사용하고 실로암이라는 상징적인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에게 지도한 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164:3.13 (1812.7)

1. 이것은 개별존재의 신앙에 따라온 기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예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일으키기로 선택한 기적이었지만, 이 사람이 그로부터 파생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조처하였던 것이다.

164:3.14 (1813.1)

2. 그 소경이 고쳐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그의 신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행동이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침의 효과를 미신적으로 믿었으며, 실로암 연못이 다소 신성한 장소라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곳에까지 가서 눈에 바른 흙을 씻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일은 단지 그를 행동하도록 설득하는 활동행위에 필요한 의례일 뿐이었다.

164:3.15 (1813.2)

3. 그러나 예수가 이 독특한 활동행위와 관련하여 물질적인 수단에 부여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었다: 이것은 순전히 예수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진 기적이었으며, 이렇게 하여 그 시대는 물론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서도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병을 고치는 일에 물질적인 수단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일이 없도록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는, 기적만이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버리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려 하였던 것이다.

164:3,16 (1813,3) 예수는 이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심으로 시력을 주었으며, 이 안식일 아침에 예루살렘 안의 성전 근처에서 한 것은, 이 행동이 산헤드린과 유대인 선생들 그리고 종교 영도자들에게 공개적인 도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의 공개적인 단절을 선언하는 그의 방법이었다. 예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적극적이었다. 예수는 산헤드린 앞에 이들 문제를 제기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안식일 오후 일찍 두 사도들을 이 사람에게 데려와서, 이들 토론들을 일부러 도발하여 바리새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기적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제 4 장. 산헤드린 앞에 선 요시아

164:4,1 (1813,4) 오후 중간 무렵까지 요시아를 낫게 한 사건이 너무나도 큰 논란을 성전 주변에서 일으키게 하였기에, 산헤드린의 영도자들은 그곳의 일상적인 성전 회합 장소에서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에 산헤드린의 집회를 금지하는 오랜 규칙을

여기면서 이렇게 하였다. 예수는 마지막 시험이 올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자기를 고발하는 주요 죄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안식일에 소경을 고쳐준 것이 산헤드린 앞에 고발되어 재판 받기를 바라셨다, 이는 이 자비의 행동에 대하여 그를 심판하게 되면, 바로 그 높은 유대인 법정 재판소는 안식일에 이들 문제를 심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자아-부과한 법을 직접 위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164:4.2 (1813.5)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자기들 앞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대신에, 그들은 즉시로 요시아를 데려오도록 하였다.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한 후에, 산헤드린을 대변하는 자가 (약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함) 요시아에게 명령하여,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말하라고 하였다. 그날 아침 눈이 떠진 후로 요시아는 도마와 나다니엘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안식일에 고침 받은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진노하고 있다는 것과, 관계되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들이 소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요시아는 예수가 해방자라고 불리는 바로 그 이시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질문하였을 때 그는 말했다; “이 사람이 와서, 내 눈에 흠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으며, 내 눈이 떠졌습니다.”

164:4.3 (1813.6) 나이가 많은 바리새인 하나가 긴 연설을 한 후에 말했다; “이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너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첫째로, 흠을 빗었다는 것과, 다음에는, 안식일에 실로암에 가서 씻도록 이 거지를 보내었다는 점에서 율법을 어겼다. 그러한 자는 하느님으로부터 온 선생이 될 수 없다.”

164:4.4 (1813.7) 그러자 아무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 한 젊은이가 말했다; “만일 이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가 만일 평범한 죄인이라면 그러한 기적을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이 거지를 알고 또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것을 아는데; 이제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당신들은 아직도 이 선지자가 마귀들의 영주의 힘으로 이 모든 기적을 행한다고 말하십니까?” 예수를 감히 고소하고 비난하려는 모든 바리새인들에게 한 사람이 일어나

혼란에 빠뜨리고 당황케 하는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 중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다. 사회자는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고, 논쟁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 사람에게 다른 질문을 하였다. 요시아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네 눈을 뜨게 하였다고 네가 주장하는 이 사람, 예수에 대하여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리고 요시아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가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164:4.5 (1814.1) 영도자들은 크게 불안을 느끼고,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가 실재적으로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요시아의 부모를 데려오도록 하였다. 그들은 그 거지가 고쳐졌다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으려 하였다.

164:4.6 (1814.2) 예수가 회당 출입을 금지 당하였다는 사실은 물론, 그의 가르침을 믿는 자는 회당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추방된다는 사실을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됨은 생활필수품을 구매하는 일 외에는 유대 사회 각 분야에서 모든 권리와 혜택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164:4.7 (1814.3) 그러므로, 그들이 불려왔을 때, 위엄에 찬 산헤드린 앞에 세워진 이 가난하고 두려움에 짓눌린 요시아의 부모들은 자유롭게 이야기하기를 무서워하였다. 법정의 대변자가 말했다; “이 사람이 네 아들이냐?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서 그가 지금 볼 수 있느냐?” 그러자 요시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례로 대답했다; “이 아이가 저의 아들인 것과,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만,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이가 찼으니; 그에게 물어보셔서; 직접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164:4.8 (1814.4) 그들은 당장 요시아를 불러서 두 번째로 그들 앞에 세웠다. 정식 재판 절차에 매달려서는 그들의 음모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끼기 시작하였으므로; 요시아를 다시 불렀을 때 그들은 다른 공격 방법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였다. 법정 관리인이 전에 소경이었던 자에게 말했다; “너는 어찌하여 이 일에 대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어찌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안다. 너는 왜 진실을 식별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너는 너 자신과 그 사람 둘 모두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일 네 눈이 오늘 떠졌다고 네가 아직도 주장한다면, 하느님이 너를 치료하였다고 동의함으로써 네 죄를 대속하지 않겠느냐?”

164:4.9 (1814.5) 그러나 요시아는 어리석지도 유머가 모자라지도 않았다; 그래서 법정 관리인에게 대답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제가 소경이었다는 것과 지금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시아를 함정에 빠뜨릴 수 없었으므로 다른 질문거리를 찾아서 물었다: “그가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가 실제로 네게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가 무슨 말을 하였느냐? 너보고 자기를 믿으라고 하였느냐?”

164:4.10 (1814.6) 요시아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대답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제 말을 믿지 못하고, 또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요시아가 이와 같이

말하자, 산헤드린 공회는 갑자기 혼란에 빠져 거의 충돌이 일어날 지경이었으므로, 영도자들이 요시아에게 달려들어 화가 나서 소리쳤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일지 모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며,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율법의 선생들이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한 것은 우리가 알지만, 예수라 하는 그 자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164:4.11 (1814.7) 그러자 요시아는 걸상 위에 올라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소리쳐 말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생이라고 주장하는 여러분들은 들으십시오. 여기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음을 증거 하는데도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였다는 증거를 듣고도 아직 확실히 모르겠다고 당신들은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사악한 자에게 그런 일을 이루지 않으신다는 것과; 오직 진실하게 경배하는 자,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하느님께서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 되었던 자가 눈을 떴다는 것을 창세(創世)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당신들도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를 보시고 오늘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달으십시오! 제가 말하려는 것은, 만일 그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흩어지면서 그에게 소리쳤다: “너희가 다 죄 속에서 태어났으면서, 이제는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너는 날 때부터 소경 되었던 것이 아닐 것이며, 만일 네 눈이 안식일에 떠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귀신들의 영주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은 요시아를 쫓아내려고 회당을 향하여 즉시 달려갔다.

164:4.12 (1815.1) 요시아는 예수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치료의 본질에 대하여 거의 모르는 채로 이 재판에 회부되었었다. 모든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 앞에서 그가 그토록 현명하고 용감하게 제시하였던 대담한 증거의 대부분은, 재판이 매 순간마다 부당하고 옳지 않게 진행되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조성된 것이었다.

제 5 장. 솔로몬의 현관에서 가르치심

164:5.1 (1815.2) 안식일 위반에 대한 산헤드린 공회가 성전의 한 회의장에서 진행되는 동안, 예수는 산헤드린 앞에 소환되어 하느님의 왕국에서 신성한 아들관계를 이루는

기쁨과 해방에 대한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줄곧 아주 가까운 곳에서 거닐고 계셨으며, 솔로몬의 강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갑자기 그리고 공개적으로 출현할 때마다 항상 당황하였다. 열심히 찾던 그 기회를 예수가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산헤드린 앞에 증인으로 출두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며, 체포하는 것은 더욱 두려워하였다.

^{164:5.2 (1815.3)} 예루살렘에서의 이 시기는 겨울 중간 무렵이었고, 사람들은 솔로몬 강당에서 일부 피난처를 구하고 있었다; 예수가 거니실 때 군중들이 많은 질문을 하였으며, 두 시간 이상 그들을 가르치셨다. 어떤 유대인 선생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공개적으로 물었다: “얼마나 더 우리를 애타게 하실 작정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왜 우리에게 솔직히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말씀했다; “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 자신과 내 아버지에 관하여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였지만, 너희가 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양 무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리에 굶주리고 정의에 목마른 자들만이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에게 매혹을 느낀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그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이 어린아이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중 어떤 자들은 아직도 건축 중에 있는 성전으로 달려가서 돌을 집어 예수께 던지려고 하였으나, 믿는 자들이 그들을 말렸다.

164:5.3 (1815.4) **예수가 계속하여 가르치셨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많은 사랑 넘치는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이 선한 일들 중에 어떤 것에 대하여 너희가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그러자 바리새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했다; “선한 일에 대하여 돌을 던지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에 대하여 그리하는 것인데, 네가 사람이면서 감히 네 자신을 하느님과 동등 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예수가 대답했다;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였을 때 너희가 나를 믿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에게 신성모독 죄를 씌우려 한다. 내가 만일 하느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마라. 그러나 만일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한다면, 너희가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한 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내가 선포하는 것을 너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같이 나도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거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그에게 던지려고 달려 나왔으나, 예수는 성전 안쪽을 통하여 빠져나가셨으며; 산헤드린 공회에 참석하고 있었던 나다니엘과 도마를 만나, 요시아가 회의장으로부터 나올 때까지 성전 근처에서 기다리셨다.

164:5.4 (1816.1) 예수와 두 사도들은 요시아가 회당으로부터 쫓겨났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그를 찾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들이 그의 집에 당도하였을 때, 도마가 그를 마당으로 불러내었고, 예수가 그에게 말씀했다; “요시아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을 믿느냐?” 요시아가

대답하기를, “제가 그를 믿을 수 있도록, 그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가 말씀했다; “네가 그를 보고 들었으며, 지금 네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러자 요시아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164:5.5 (1816.2) 요시아는 자기가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처음에는 매우 우울하였지만, 즉시 준비하여 펠라에 있는 야영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예수가 지도하였을 때 그는 매우 용기를 얻었다. 예루살렘에 살던 의지가 약한 이 사람은 정말로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나기는 하였지만, 그 시대와 세대의 영적으로 고결한 집단에 동참하도록 자기를 인도하는 우주의 창조자를 보았던 것이다.

164:5.6 (1816.3) 예수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고,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주(主)는 두 사도들과 요시아와 함께 펠라로 돌아왔다. 그리고 요시아는 주(主)의 기적의 사명활동을 받은 자 가운데서 열매 충성하게 버린 사람의 하나임을 증명하였는데,

왜냐하면 일생동안 왕국 복음의 설교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제 165 편 페레아 사명 시작

^{165:0.1 (1817.1)} 서기 30년 1월 3일 화요일, 전에 세레자 요한의 열 두 사도들의 우두머리이었고, 나지르인이며, 한 때에는 앵게디에 있는 나지르인 학교 교장이었고, 현재는 왕국의 70인 메신저들의 우두머리인 아브너는 페레아의 모든 도시와 마을들로 사명으로서 그들을 보내기에 앞서서 연관-동료들을 모두 불러 최종적인 지도를 하였다. 이번의 페레아 전도는 거의 3달 동안 계속되었으며, 주(主)의 마지막 사명활동이었다. 이 일 후에 예수는 육신을 입으신 상태로서는 마지막 체험을 하려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70인은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의 도움을 잠깐씩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도시와 성읍 그리고 그 밖의 50여개의 마을들에서 일하였다: 자폰, 가다라, 마캇, 아르벨라, 라마, 에드레이, 보소라, 카스핀, 미스페, 게라사, 라가바, 수콧, 아마투스, 아담, 페누엘, 카피톨리아, 디온, 하티타, 가다, 필라델피아, 욱베하, 길르앗, 베드-님라, 티루스, 엘레알라, 리비아스, 헤스본, 칼릴호, 베스-포,

시팀, 시브마, 메데바, 베스-메온, 아레오폴리스, 그리고 아로르 이었다.

165:0.2 (1817.2) 이제 62명이 된 여자 대원들은 이 페레아 전도여행 전(全) 기간 동안 병자들을 돌보는 일을 거의 도맡아서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왕국 복음은 영적인 측면으로 높이 발전되었으며, 따라서 기적을 행하는 일은 없었다. 예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팔레스타인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곳처럼 속속들이 일한 적이 없었으며, 주(主)의 가르침이 보다 나은 계층의 시민들에게 어느 곳보다도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165:0.3 (1817.3) 이 때 페레아에는 거의 같은 숫자의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었으며, 유대인들은 주로 유다 마카비 시대(時代)에 이 지역으로 이주해 왔었다. 페레아는 팔레스타인 전역(全域)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림 같은 지역이었다. 유대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요단 저편 땅"으로 알려져 있었다.

165:0.4 (1817.4) 이 기간 동안 예수는 시간을 나누어서, 펠라에 있는 야영지에도 계시고, 여러 도시에 흩어져 가르치고 전파하는 70인을 열 두 사도들과 함께 돕기도 하였다. 비록

예수가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70인은
아브너의 지시에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제 1 장. 펠라 야영지에서

165:1.1 (1817.5) 1월 중순경 1,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펠라에
모였으며, 예수는 야영지에 머무시는 동안 매일 적어도 한
번씩 군중들을 가르치셨고, 비가 오지 않으면 대개 아침
9시부터 말씀하였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매일 오후에
가르쳤다. 예수는 열 두 사도들과 다른 노련한 제자들과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의 평범한 학습(學習)으로
매일 저녁 시간을 보내셨다. 이 저녁 모임은 보통 50명 정도
되었다.

165:1.2 (1817.6) 3월 중순경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을
때까지,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예수 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다. 주(主)는 자기
메시지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였을 때 이 땅에서의
일을 마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정점(頂点)은 왕국에
대한 진보에서의 두 번째이자 아무 기적이 없는 위상
위에서 이루어졌다. 모인 무리들 중의 4분의 3 정도는
진리를 찾는 자들이었지만, 예루살렘과 다른 곳에서 온

많은 숫자의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트집을 잡으려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

165:1.3 (1818.1)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은 펠라 야영지에 모인 군중들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열 두 사도들은 실제 전도 사명활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며, 예수와 함께 아브너의 연관-동료들을 방문하러 이따금씩 나갔을 뿐이다. 아브너는 전에 자기의 주(主)였던 세레자 요한이 대부분의 사명활동을 이곳에서 하였기 때문에, 페레아 지역에 매우 익숙해 있었다. 페레아 전도가 시작된 후로, 아브너와 70인은 펠라 야영지에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다.

제 2 장. 선한 목자에 관한 교훈

165:2.1 (1818.2) 300명 이상의 예루살렘 주민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기타 사람들이 봉헌 축제가 끝날 무렵 유대인 관할 구역으로부터 서둘러 떠나시는 예수를 따라 북쪽을 향하여 펠라까지 왔으며; 예수가 “선한 목자”에 관한 설교(說敎)를 할 때 열 두 사도들은 물론 이 유대인 선생들도 참석하였다. 약 100명 정도 되는 무리들과 이야기하면서 30분가량 자유로운 토론을 한 후에 예수가 말씀했다:

165:2.2 (1818.3) "오늘밤에는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는데, 너희들 대부분은 나의 제자들이지만 증오에 찬 나의 적들도 있기 때문에, 비유로 가르치려고 하니, 너희는 각자가 가슴속에 떠오르는 것을 스스로 잘 깨닫도록 하여라.

165:2.3 (1818.4) "이 밤에, 내 앞에는 나와 이 왕국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죽으려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 중에는 앞으로 순교할 자들도 있다; 또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전통의 노예가 된 자들으로써, 음흉하고 속이기를 즐기는 너희 영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나를 따라와, 사람의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내가 지금 육체로 살고 있는 삶이, 너희 모두, 참 목자와 거짓 목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만일 거짓 목자가 눈이 멀었으면 그에게는 죄가 없을 것인데도, 너희는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죄는 너희에게 남아있다.

165:2.4 (1818.5) "참 목자는 밤이 되어 위험한 때가 되면 자기 양 무리를 우리 속으로 모은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문으로 우리에게 들어가 부를 때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아본다. 문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 양 우리 안에 들어간

목자들은 누구든지 도둑이며 강도이다. 참 목자는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준 후에 우리에 들어가며, 그의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아보고 그의 말에 따라서 밖으로 나오며; 그의 양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참 목자는 그들 앞에서 먼저 가며; 그는 길을 인도하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그의 양들이 그를 따르는 것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다; 양들은 낯선 자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양들은 그의 음성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낯선 자로부터 도망칠 것이다. 여기에 우리와 함께 모인 이 군중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나,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고 우리를 따라오며; 적어도 그들은 진리에 굶주리고 정의에 목마른 자들이다. 그리고 양들이 너희 음성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너희를 따르지 않는 것은 너희가 거짓 목자들이기 때문이다.

165:2.5 (1819.1) 예수가 이 비유를 말씀할 때, 그에게 질문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비유를 계속하였는데:

165:2.6 (1819.2) “내 아버지의 양 무리의 대리(代理)-목자들이 되고자 하는 너희는 제 값을 하는 영도자들이 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으로 그 양 무리를 먹여야만 한다;
옆에 물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너희 양 무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참 목자가 아니다.

165:2.7 (1819.3) “그리고 지금, 너희들 중에 이 비유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기에, 확실히 말하겠는데,
나는 아버지의 양 우리에 들어가는 그 문이며, 동시에 내
아버지의 양 무리의 참 목자이다. 나 없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목자는 누구든지 실패할 것이며,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돌보는 그들에게,
나는 그 문이다. 내가 만들고 제정한 방법대로 영원한 길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며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초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165:2.8 (1819.4) “그러나 나는 또한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참 목자이기도 하다. 도둑은 오직
훔치고 죽이며 파괴하려고 우리를 부수고 들어오지만;
나는 너희 모두가 생명을 갖되 더욱 풍성하게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왔다. 샅을 받고 일하는 자는 위험이 닥칠 때
양들이 모두 흩어져 죽도록 내버려두고 혼자 도망칠

것이나; 참 목자는 늑대가 올 때 도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양 무리를 보호하고, 필요하면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너희가 내 친구이든지 내 적이든지, 나는 참 목자이다; 나는 나의 양들을 알고 또 나의 양들은 나를 안다. 나는 위험이 닥쳐도 도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의 완성인 이 봉사를 완결할 것이며,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양 무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165:2.9 (1819.5)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많이 있으며, 이 말들은 오직 이 세계에서만 옳은 것이 아니다. 다른 이 양들도 내 음성을 알아보며, 모두 한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느님의 아들들로서 한 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아버지께 약속하였다. 그렇게 되면 너희 모두는 한 목자, 참 목자의 음성을 알아볼 것이며,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을 모두 알게 될 것이다.

165:2.10 (1819.6) “그리하여 너희는 아버지께서 왜 나를 사랑하고 이 권역에 있는 그의 모든 양 무리를 내 손에 맡겨주셨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양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것, 내가 나의 양들을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의 다양한 양떼들을 위한 봉사에서 주저하지 않고 나의 생명을 내려놓으리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알아야 한다. 내가 만일 나의 생명을 내려놓는다면, 나는 다시 그것을 취할 것이다. 어떤 사람도, 다른 어떤 다른 창조체도 내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다. 나는 내 생명을 내려놓을 권리와 힘을 가졌고 그것을 다시 취할 힘과 권리도 똑같이 갖고 있다. 너희는 이것을 납득할 수 없겠지만, 나는 그러한 권한을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였다.”

165:2.11 (1819.7) 그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들었을 때, 사도들은 혼동되었으며, 제자들은 몹시 놀랐으나, 반면에 예루살렘과 주변에서 온 바리새인들은 어둠 속으로 나아가며 말하기를, “그 자는 미쳤든지 아니면 그 속에 귀신이 들어있다.”고 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선생들은 말했다; “그는 마치 어떤 권한을 가지신 것처럼 말씀하며; 그밖에도, 속에 귀신이 들어 있는 자를 보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이 분이 한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했던 이러한 것을 본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는가?”

165:2.12 (1819.8) 이들 유대인 선생님들 가운데 반 정도가 다음 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였으며, 나머지 반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예루살렘과 고향으로 돌아갔다.

제 3 장. 펠라에서의 안식일 설교

165:3.1 (1819.9) 1월 말 안식일 오후까지 군중들의 숫자는 거의 3,000명에 이르렀다. 1월 28일 토요일, 예수는 “신뢰와 영적 방어태세”에 대하여 잊히지 않는 설교를 하였다. 시몬 베드로가 서론적인 발표를 한 후에, 주(主)는 말씀했다:

165:3.2 (1820.1) “내가 그 동안 여러 번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말하였던 것을 이제 이 군중들에게도 분명히 말하는데: 선입견을 고수하고 전통의 노예로 길들여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나 가슴이 정직한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으며 그들 중에는 나의 제자가 되어 이곳에 있는 자들도 있다. 이제 곧 너희들 모두 내가 가르치는 것을 납득하게 될 터인데, 이제는 계시되지 못하도록 가리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로부터 가려진 것은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임무를 완수하게 될 때 모두 알려질 것이다.

165:3.3 (1820.2) “우리의 적들이 지금 비밀리에 어둠 속에서 계획하는 것들이 잠시 후면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될 것이며 지붕 위에서 공포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친구들아,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그들이 사람의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 찾을 때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라도 그 후에는 너희에게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이나 땅에서나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불의에서 구원하고 우주의 심판 자리에서 너희에게 죄가 없다고 제안하실 수 있는 그의 지혜를 기쁨으로 향유하라고 너희에게 충고한다.

165:3.4 (1820.3) 참새 다섯 마리가 두 페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 새들이 먹을 것을 찾으려고 날아다닐 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께 알려지지 않고서는 한 마리도 존재하지 못한다. 세라핌천사 수호자들에게는 네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알려져 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너희는 왜 너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닥쳐오는

많은 사소한 일들로 두려워하면서 사느냐? 너희에게
이르겠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

165:3.5 (1820.4) "사람들 앞에서 나의 복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너희 모두를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이제 곧 인정할 것이나; 사람들 앞에서 나의 가르침의
진리를 알면서 부인하는 자는 하늘의 천사들이 앞에
서기도 전에, 그의 운명의 수호자에 의하여 부인될 것이다.

165:3.6 (1820.5)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너희가 할 수 있는 말들은
용서를 받겠지만; 그러나 하느님을 거슬러 주제님께
모독하는 자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악의 기세로 여기는
지경까지 간다면, 그러한 의도적인 반역자들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165:3.7 (1820.6) "그리고 우리의 적들이 너희를 회당 관리들
앞이나 다른 높은 당국자들 앞으로 끌고 갈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며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걱정하지 마라. 너희 속에 거하는 영이

너희가 왕국 복음에 경의를 표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바로 그 순간에 확실히 가르쳐줄 것이기 때문이다.

165:3.8 (1820.7) “너희가 결단하지 못하고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너희는 왜 두 가지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느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자신이 영원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복된 소식을 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느냐? 영적 유산을 기쁘게 얻으라고 얼마나 더 우리가 너희를 설득해야 되겠느냐? 나는 아버지를 너희에게 보여 주고 너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에게도 왕국에 들어오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들어오게 하여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하라는 그 초청은 이제까지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항상 있을 것이다.

165:3.9 (1820.8) 예수가 말씀을 완결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 의해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러 갔으며 예수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였다.

제 4 장. 유산을 나눔

사도들이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줄 때, 주(主)는 남아있는 자들과 대화를 하였다. 그리고 어떤 젊은이가 그에게 물었다: “주(主)여,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많은 재산을 저와 형에게 남겨 주셨습시다만, 형이 제 몫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유산을 저와 나누도록 하라고 제 형에게 좀 일러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물질을 탐하는 이 젊은이가 장삿속으로 그러한 질문을 하려는 것에 다소 화가 났지만; 이 경우를 다른 가르침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예수는 말씀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에게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세상의 물질적인 일에 내가 관심을 둘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어디서 얻었느냐?” 그리고 나서 자기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했다;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한 물질의 풍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재물의 힘에서 오지 않으며, 기쁨은 부귀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재물 그 자체는 어떤 재앙의 씨가 아니다, 단지 부(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주 이세상의 관련사들에 너무 헌신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혼이 이 땅에 있는 하느님 왕국의 영 실체들의 아름다운

끌어당김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볼 수 없게 된다.

165:4.2 (1821.2) “내가 어떤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는데, 그의 땅이 풍성한 소산을 내어서; 큰 부자가 되자, 스스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 무엇을 할까? 이제는 너무 많아서 재물을 쌓아 둘 곳이 부족하다.’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는 말했다; ‘웁지, 이렇게 해야겠다. 나의 창고들을 허물어버리고 훨씬 큰 것들을 지어서, 곡식과 보물들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게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내 혼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니, 혼아 네가 몇 년 동안 쓰고도 남은 재물을 가졌구나; 이제 너의 편안함을 누려라; 먹고, 마시고, 즐기라, 이는 네가 부자이고 물건이 많이 쌓였기 때문이다.’

165:4.3 (1821.3) “그러나 이 부자는 어리석었다. 자기 마음과 육체의 물질적인 소욕을 만족시켜 주면서, 영의 만족을 위하여 그리고 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에는 실패하였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때까지 저축한 재물을 써보는 기쁨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다가, 바로 그 날 밤에 그의 혼이 불러갔다. 그 밤에 산적들이 그 집에

들어와 그를 죽이고, 그의 창고들을 약탈한 후에, 남은 것을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은 부동산들은 그의 상속자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다.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보화를 이 땅에 쌓아 두었으나, 하느님을 향해서는 부자가 아니었다.”

165:4.4 (1821.4) 이렇게 하여 예수는 그 젊은이와 그의 상속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는 자기 문제가 탐욕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가 아니었다면 주(主)는 끼어들지 않았을 것인데, 왜냐하면 현세적인 관련사들이라면 사도들의 경우일지라도 관여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 제자들의 경우에도 아주 적었다.

165:4.5 (1821.5) 예수가 이야기를 마치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물었다; “주(主)여, 저는 당신의 사도들이 당신을 따르려고 땅에서의 소유를 다 팔았고, 그들은 에센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공동으로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인 우리들 모두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한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죄입니까?” 예수는 이 질문에 대답했다; “나의 친구여, 명예로운 재물을 가지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물질적인 소유물로써의 재물이 보물로 전향되어 그것이 너의 관심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너의 애정이 왕국의 영적 추구에 대한 헌신으로부터 전환되고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 너희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이 땅에서의 정직한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에 그 어떤 죄도 없다, 이는 너희의 보물이 있는 바로 그 곳에 역시 너희의 진심이 있기 때문이다. 탐욕과 자기만족으로 이끄는 재물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재물을 풍성하게 가지면서, 왕국의 일에 자신들의 모든 에너지를 헌신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려고, 그렇게 넘치도록 기부하는 사람들에 의한 그러한 청지기관계의 영으로 베푸는, 재물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돈 없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저쪽에 있는 야영장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는 것은, 인색하지 않은 관대한 남자와 여자들이 너희를 대접하는 주인인 다윗 세베대에게 그런 목적에 써 달라고 기금을 주었기 때문이다.

165:4.6 (1822.1) “그러나 재물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라도 결코 잊지 말라. 부유해지기를 갈망하는 자는 누구나 종종 어두움에 처하고 심지어는 영적 통찰력을

잃어버린다. 재물이 너희 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주인이 되는 위험성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165:4.7 (1822.2) 예수는 낭비나, 게으름이나, 가족들을 위한 물리적 필수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무관심이나, 또는 자선금에 의존하는 것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또한 묵인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혼의 행복에, 그리고 하늘의 왕국에서 영적 본성의 진보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165:4.8 (1822.3) 그러고 나서, 세례 주는 것을 목격하려고 사람들이 강가로 내려간 동안, 처음 왔던 사람이 예수가 자기를 가혹하게 다루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유산에 관하여 물으려고 예수께 사적으로 다가왔다: 그의 말을 다시 들으신 주(主)는 대답했다; "얘야, 너는 왜 이와 같은 날에 탐욕스러운 기질에 탐닉하여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느냐? 네가 만일 네 불만스러운 일을 회당의 재판소에 가지고 가면 상속에 관한 유대인의 법이 정당하게 관리-운영해 주리라는 것을 네가 모르겠느냐? 너의 하늘에서의 상속에 관하여 네가 알도록 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하늘에서의 상속에

관하여 네가 알도록 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성서에서 '꼭 틀어쥐고서 아주 인색하게 하여 부자가 된 사람이 받을 보상은 이와 같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편히 쉬고 내 재산으로 계속 잘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언제 무슨 일이 닥쳐올지 아직도 모르며, 죽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야만 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라고 쓴 경전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들이 먹고 배부르며 기름을 바른 후에 다른 하느님들에게로 돌아섰다.'는 계명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시편에서 '주님은 탐욕을 멸시한다.'는 것과 '의로운 자가 가진 적은 재물이 사악한 자가 가진 많은 재물보다 낫다.'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본심을 두지 말라'는 경전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레미야가 '부자로 하여금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치 못하게 하라'라고 기록한 것과, 에스겔이 진리를 말하기를 '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으나, 그들의 본심은 자신의 이익에 가 있다'한 부분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165:4.9 (1822.4) 예수는 그 젊은이를 보내시면서 말씀하기를,
“얘야, 네가 온 세상을 얻고서 네 자신의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165:4.10 (1822.5) 가까이 서 있던 다른 사람이 심판 날에 부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수께 물어보자, 대답했다; “내가 온
것은 부자나 혹은 가난한자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았던 삶에 대하여 심판이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 심판 때에 재물에 관하여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이
고려될지 모르지만, 큰 재물을 얻은 사람은 누구든지
적어도 세 가지 질문에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
질문은 다음과 같다:

165:4.11 (1822.6) “1. 얼마나 많은 재물을 축적하였는가?

165:4.12 (1822.7) “2. 어떻게 이 재물을 얻었는가?

165:4.13 (1822.8) “3.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165:4.14 (1822.9) 그리고 나서 예수는 저녁 식사 때까지 자기
텐트에 가셔서 잠시 쉬셨다. 사도들은 세례 베푸는 일이
 끝나자, 그들도 와서 땅에서의 재물과 하늘에서의 보화에

대하여 예수와 이야기하려고 하였지만, 주(主)는 이미 잠이 드셨다.

제 5 장. 재물에 관하여 사도들에게 말씀하심

165:5.1 (1823.1) 저녁 식사가 끝난 후 그날 밤에,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이 함께 모여 매일 갖는 회의를 하는 중에, 안드레가 물었다: “주(主)여, 저희들이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동안, 당신은 우리들이 듣지 못한 많은 말씀들을, 망설이고 있는 군중들에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자 안드레의 질문에 대답하여 예수가 말씀했다;

165:5.2 (1823.2) “좋다, 안드레야, 너희에게 재물과 자아-유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말해 주겠지만, 너희는 모든 것을 떠나서 나를 따를 뿐만 아니라, 왕국의 대사들로서 사도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제자들이나 군중들에게 말하였던 것과는 어느 정도 다를 것이다. 너희가 전파하는 왕국의 아버지는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너희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체험을 하였고, 잘 알고 있다. 너희는 왕국의 사명활동에 너희의 삶을 바쳐왔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지 또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지 하는 세속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혼의 행복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중요하다; 영의 진보가 의복의 필요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너희 양식의 확실성에 의심이 들 때에는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그들은 심지어 앓고 거두지도
않으며 창고나 헛간도 없지만, 아버지께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들 모든 각각에게 먹이를 주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이 새들보다 얼마나 더 중요하냐! 또한,
너희가 염려하고 조바심하며 의심한다고 해서, 너희의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염려함으로써 네
키를 한 뼘이라도 키울 수 있거나, 네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 그러한 문제들을 너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데, 너희는 왜 이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느냐?

165:5.3 (1823.3)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실을 만들지도
아니하지만; 모든 영광을 누리던 솔로몬이라도 이 꽃처럼
아름답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살아 있다가 내일에는
잘려서 불에 던져지는 들의 풀도 하느님께서 그토록 옷을
입히시는데, 하늘왕국의 대사들인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오! 너희 신앙이 적은 자들아!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너희 자신을 전심으로 드리면, 너희가 버린 너 자신이나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 대하여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삶을 진심으로 복음에 바친다면, 너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다만 믿는 제자에 불과하다면, 너희들 자신의 양식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함은 물론, 가르치고 전파하며 병을 고치는 모든 사람들의 생계를 위하여 기부를 해야만 한다. 만일 너희가 음식 때문에 염려한다면,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세상의 나라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나? 너는 네 일에 헌신하고, 아버지와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을 믿어라. 너희 모두에게 한 번 더 확실하게 말하겠는데, 너희 삶을 왕국의 일에 바치면, 너희에게 실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될 것이다. 더 큰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보다 작은 것들은 그 안에서 발견될 것이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은 그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그림자는 반드시 본체를 따르는 것이다.

165:5.4 (1823.4) 너희 적은 숫자의 무리이기는 하지만, 너희가 만일 신앙을 갖는 다면,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다면, 내 아버지께서 큰 기쁨으로 너희에게 이 왕국을

주실 것이라고 내가 단언한다. 돈주머니가 낡아지지 않는
곳, 도둑이 약탈할 수 없는 곳, 그리고 좀이 파먹지 못하는
곳에 너희 보물을 쌓아 두어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였듯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그 곳에 너희 진심이
마땅히 있을 것이다.

165:5.5 (1824.1) “그러나 우리 앞에 바로 있을 일과,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 너희들에게 남겨질 일들 속에서,
너희가 중대한 시험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모두 두려움과
의심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한다. 너희들 각자는 너희
마음을 대비하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너희는 결혼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그가
문을 두드릴 때에, 빨리 가서 문을 열어 줄 수 있도록
마음을 추스르고 있어라. 그러한 하인들은 그와 같은 큰
기회에 그들이 신실하다는 것을 발견한 주인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 주인이 하인들을 앗혀 놓고
그들에게 시중을 들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바로 앞에 하나의 위기가 있을 것이며,
너희는 조심하고 준비해야만 한다.

165:5.6 (1824.2) “어느 때에 도둑이 들어올지를 알고 있는 자에게는 도둑이 그 집을 부수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도 잘 알 것이다. 너희도 스스로 주의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기대하지 않은 때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의 아들이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165:5.7 (1824.3) 열 두 사도들은 잠시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 경고들 중에 어떤 것들은 전에도 들었던 것이지만 이번처럼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았었다.

제 6 장.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심

165:6.1 (1824.4) 그들이 앉아서 생각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물었다: “이 비유를 사도들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는 대답했다:

165:6.2 (1824.5) “시험이 있을 때에, 사람의 혼이 드러날 것이다; 가슴속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도록 시험될 것이다. 하인이 시험받고 통과되면, 집 주인이 하인에게 식솔들을 맡기면서, 이 신실한 청지기를 틀림없이 신뢰하여 자기 자녀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양육하도록 감독을 맡길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나의 자녀들의 복지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지, 내가 곧 알게 될 것이다. 그 집 주인이 시험에 통과된 참된 하인에게 자기 가족의 관련사들을 맡기듯이, 나도 내 왕국의 관련사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는 때에 시험을 잘 견딜 자들을 선택하여 일을 맡길 것이다.

165:6.3 (1824.6) “그러나 하인이 게으름을 피우다가 가슴속에 ‘주인이 돌아오시기를 늦추신다.’고 말하면서 그의 동료 하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술에 취한 친구들과 먹고 마시기 시작한다면, 하인이 생각지 못한 때에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그의 충실치 못함을 발견하고 그를 가차 없이 쫓아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갑자기 닥쳐올 그 날을 위하여 스스로 잘 준비하도록 하여라. 너희에게 많이 맡겨진 만큼, 너희로부터 요구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격렬한 시험이 너희에게 임박하였다. 받아야 할 세례가 내게 있으며, 이것이 완료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평화를 전하지만, 나의 임무는 사람의 물질적인 관련사에 있어서 평화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적어도 당분간은. 가족 중에 두 사람이 나를 믿고 세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곳에는 분열만이 있을 뿐이다. 너희가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배척하게 될 것이다. 진실로, 믿는 자들은 각자 자기 가슴속에 크고 영원한 평화를 갖게 되겠지만, 이 땅의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스러운 유산을 기꺼이 믿고 그 세계로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되, 모든 나라들, 모든 남자들,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전파하라.”

165:6.4 (1824.7) 이렇게 하여 알차고 바쁜 안식일이 지나갔다. 다음 날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은 페레아 북쪽 지방으로 가셔서 아브너의 감독 하에 이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70인을 방문하였다.

제 166 편 북쪽 페레아의 마지막 방문

166:0.1 (1825.1) 2월 11일부터 20일까지,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은 아브너의 연관-동료들과 여자 무리단의 회원들이 사명활동하고 있는 북쪽 페레아 지방의 모든 도시들과 마을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이 복음의 메신저들이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예수는

사도들에게 왕국 복음이 기적과 이적(異蹟)을 행하지 않고도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하여 상기시키셨다.

^{166:0.2 (1825.2)} 페레아에서의 3달 동안의 사명활동은 열 두 사도들이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도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때부터 복음은 예수의 개인성보다는 예수의 가르침에서 반영되었다. 그러나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지침을 오랫동안 따르지는 못했는데, 이로서 예수가 죽고 부활한 후에 그들은 곧 그의 가르침을 떠나서, 기적적인 개념과 그의 신성한-인간 개인성의 영화로웠던 기억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제 1 장. 라가바의 바리새인들

^{166:1.1 (1825.3)} 2월 18일 안식일에 예수는 라가바에 있었고, 그곳에는 나다니엘이라 불리는 부자 바리새인이 살고 있었다; 지방 전역에서 그의 동료 바리새인들의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는 약 20명쯤 되는 그들 모두를 위하여 안식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예수를 주빈(主賓)으로 초대하였다.

^{166:1.2 (1825.4)} 예수가 이 아침 식사시간에 맞추어 도착하였을 때, 두 세 명의 율법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이미 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주(主)는 물이 들어있는 그릇으로 가서 손을 씻지 않으시고 곧바로 나다니엘의 왼쪽에 앉았다. 많은 바리새인들, 특히 예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가 깨끗하게 할 목적이 아니면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과 순전히 예식적인 이러한 행동은 멸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손을 두 번 씻지 아니하고 직접 식탁으로 가신 것에 대하여 놀라지 않았다. 그러나 나다니엘은 바리새인들이 엄격히 지키고 있는 실천 관행을 주(主)가 지키시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음식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손을 씻는데, 예수는 그것도 하지 않았다.

166:1.3 (1825.5) 나다니엘과 그의 오른 쪽에 앉은 쌀쌀맞은 바리새인사이에 어지간한 수군거림이 있고나서, 그리고 주(主)의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이 눈썹을 여러 번 크게 치켜뜨고 입술을 삐죽거리는 냉소가 있고나서, 예수는 마침내 말했다: “나는 너희가 이 집에 나를 초청하여, 너희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는 어쩌면 내게 하느님 왕국의 새 복음의 선포에 관하여 물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 자신의 자아-정의로움에 대한 예식적인 헌신을 내보이며 전시하는 것을

구경하라고 나를 이곳에 오게 하였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 그러한 봉사는 너희가 이제 내게 다 하였다; 다음에는 어떤 것을 이참에 내가 너희의 손님으로서 너희가 네게 대접할 것이냐?”

166:1.4 (1826.1) 주(主)가 이렇게 말씀하자 그들은 모두 식탁에 눈을 내려 깔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아무도 대답이 없으므로 예수가 계속했다; “이 자리에 같이한 너희 바리새인들 중에는 나의 친구들도 많이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나의 제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복음이 그들 앞에서 큰 힘으로 닥쳐있는 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깨닫고 빛을 보기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너희가 컵과 접시들의 겉은 그토록 깨끗하게 닦지만, 영적-음식 그릇은 얼마나 불결하고 더러운지! 너희는 사람들에게 독실하고 성스러운 모습을 내 보이려고 다짐하지만, 너희의 내부 혼은 자아-정의로움, 탐욕, 강탈, 그리고 영적 사악함의 모든 방식으로 차있다. 너희의 영도자들은 감히 사람의 아들을 죽이고자 음모하고 계획까지도 하고 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의 외적인 태도와 독실한 고백뿐 아니라 혼의 내적인 동기도 보신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느냐?

구제의 기부와 십일조를 지불하는 것이 불의로부터 너희를 씻어낸다는지, 모든 사람의 재판관의 현존 안에서 깨끗하게 서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지 마라. 생명의 빛을 계속하여 거부하는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 너희가 십일조를 내는 데 어김이 없고 구제하는 것에 화려하게 자랑스럽지만, 너희는 알면서도 하느님의 강림을 업신여겨 물리치고 그의 사랑의 계시를 거절하고 있다. 너희가 이들 사소한 의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비록 옳다할지라도, 더 중요한 요구사항들을 행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지 말아야만 한다. 공의를 피하고 자비를 거절하며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모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장터에 서서 아침하는 인사 받기는 좋아하면서, 아버지의 계시를 알보는 모든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166:1.5 (1826.2) 예수가 떠나고자 일어나려고 했을 때, 식탁에 앉아 있던 율법사 한사람이 그를 말을 걸었다; “그러나 주(主)여, 당신이 말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그러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는 율법사들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자 예수는 서선 채로, 율법사에게 대답했다; “바리새인처럼,

너는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 참아내기에 고통스러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 위에 지우면서, 잔치에서 긴 옷을 입고 상석에 있기를 즐기고 있다. 사람들이 이 무거운 짐 밑에서 휘청거리고 있을 때에도, 너희는 손가락 하나로도 거들어 주려고 하지 않는다. 조상들이 죽였던 선지자들을 위하여 무덤 만들기를 지극히 좋아하는 너희에게 화 있을 것이라! 선지자들이 저희시대에 현시하였던 것—하느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를 계시하는 것—을 이 시대에 나타나서 행하고 있는 그들을, 너희가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에, 너희 조상들이 한 일을 너희도 찬성하는 것임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지나간 모든 시대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피는, 이 뒤틀리고 자아-정의로움의 세대에게 필요 되는 것일 수 있다. 서민들로부터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버린 너희 율법사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너희 자신이 진리의 길에 들어가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려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그 길을 감추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하늘의 왕국의 문들을 닫을 수 없다;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열어놓았고, 이 자비의 문들은, 마치 흰색 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속으로는 죽은 자의 뼈와 모든 종류의 영적 더러움이 가득한, 그러한 거짓 선생과 참되지 않은 목자들의 편견과 거만 때문에 닫히지는 않을 것이다.

166:1.6 (1826.3) 그리고 예수가 나다니엘의 식탁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음식을 들지 않은 채로 밖으로 나가셨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믿게 되어, 왕국으로 들어갔지만,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은 흑암 속의 길을 계속하여 고집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에서 있을 산헤드린 공회 앞에 그를 데려가 시험하고 심판할 수 있도록, 그의 말속에서 책을 잡을 때까지 거짓으로 꾸미며 그를 따라다니기로 결정하였다.

166:1.7 (1827.1)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관심을 쏟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166:1.8 (1827.2) 1. 철저한 십일조 실천 관행.

166:1.9 (1827.3) 2. 정화의 율법을 빈틈없이 준수함.

166:1.10 (1827.4) 3. 모든 비(非)-바리새인과의 관계를 피함

166:1.11 (1827.5) 이 경우에 예수는 처음 두 가지 실천 관행에 대하여 영적 어리석음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였으며, 반면에 비(非)-바리새인들과 사회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거절하는 것에 대하여 꾸짖으려고 계획했던 자신의 언급은, 이다음에 이 동일한 무리들 중 여러 사람들과 다시 식사할 때 하려고 뒤로 미루셨다.

제 2 장. 열 명의 나환자들

166:2.1 (1827.6) 예수는 다음 날 열 두 사도들과 사마리아 접경에 있는 아마투스에 가셨으며, 도시에 가까워질 때 이곳 가까이에 머물고 있는 열 명의 나환자 무리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들 중에 아홉 명은 유대인이었으며,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다. 이 유대인들은 대개 사마리아인과 접촉하거나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공통적인 괴로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모든 종교적인 선입관들이 무시될 수 있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었고, 전에 일어났던 많은 기적들과 병 고침을 알고 있었으며, 70인들이 주(主)가 언제쯤 오실 것이라고 알려주는 실천 관행 때문에, 주(主)가 열 두 사도들과 이곳에 왔을 때, 열 명의 나환자들은 이 무렵에 이 장소 근처로 지나가시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의 관심을 살만한 도시 외곽의 이곳으로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려고 기다렸다. 예수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본 열 명의 나환자들은 그에게 감히 접근하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그에게 외쳤다: “주(主)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저희를 깨끗케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고쳐주셨듯이 저희들도 고쳐주십시오.”

166:2.2 (1827.7) 예수는 방금 열 두 사도들에게, 페레아 지방의 이방인들과 덜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더 보수적이며 전통에 얽매인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보다, 70인이 전파한 복음을 왜 더욱 기꺼이 믿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였었다. 예수는 그들의 메시지가 갈릴리 사람들, 심지어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더 쉽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열 두 사도들은 오랫동안 멀리되어 온 사마리아인들에게 아직도 좋은 감정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166:2.3 (1827.8) 따라서, 열심당원 시몬은 그 나환자들 가운데 사마리아인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로 하여금 그들과 인사할 겨를도 없이 그 도시를 지나쳐 가시도록 하려고

애를 썼다. 예수가 시몬에게 말씀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만큼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의 동료들을 우리가 심판할 수 있겠느냐?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만일 이 열 사람을 온전케 한다면, 아마도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보다도 더 감사를 표시할 것이다. 시몬아, 너는 네 의견이 맞을 것이라고 느끼느냐?” 그리고 시몬이 곧 대답하기를, “저들을 깨끗케 해 주시면, 곧 아시게 되겠습니다.” 예수가 대답하였다. “시몬아, 그렇게 될 것이며,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너도 곧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166:2.4 (1827.9) 예수는 나환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했다; “너희가 만일 온전해진다면, 모세의 율법이 시키는 대로 사제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갈 때에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고침 받고 있음을 보고, 돌아와 예수를 찾으면서 큰 소리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주(主)를 찾은 그는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깨끗해짐에 대하여 감사를 드렸다. 아홉 명의 다른 사람들, 그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병이 나았음을 발견하였으며, 그들도 자신의

깨끗해짐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사제에게 몸을 보여주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다.

166:2.5 (1828.1) 사마리아인이 아직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주(主)는 열 두 제자들 특히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했다; “열 사람이 깨끗함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아홉 명의 유대인들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한 사람만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돌아왔다.” 그러시면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기를, “일어나 네 길을 가라; 네 신앙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166:2.6 (1828.2) 그 사람이 떠나자 예수는 사도들을 다시 바라보셨다. 다른 사도들은 모두 예수를 쳐다보았지만, 열심당원 시몬은 눈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열 두 사도들은 아무 말도 없었다. 예수도 말씀이 없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다.

166:2.7 (1828.3) 열 사람 모두가 자신들이 나병에 걸렸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네 사람만이 병에 걸렸었다. 다른 여섯 명은 나병이라고 오인한 피부병을 치료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은 정말로 나병에 걸려 있었다.

166:2.8 (1828.4) 예수는 열 두 사도들에게 나환자들이 깨끗해진 것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하고, 아마투스에 들어가실 즈음에 주의를 주셨다: “집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어떻게 허락된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너희가 보고 있다.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치유를 증여할 때 감사드리는 것에 소홀하다면 그들은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낯선 자들은 집의 가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들일 때는, 무척 놀라면서 그들에게 선한 일들이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자 하는 부담을 지니게 된다.” 사도들은 주(主)의 말씀에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제 3 장. 게라사에서의 설교

166:3.1 (1828.5)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이 왕국 메신저들과 함께 게라사를 방문하자, 그를 믿는 바리새인 하나가 질문하였다. “주님, 실제로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그러자 예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166:3.2 (1828.6)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너희는 배워왔으며; 이방인 중에서는 오직 양자 된

자들만이 구원의 희망이 있다고 배워왔다.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로써, 성서에 기록되기를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므로, 하늘의 왕국을 찾는 자들 중에 아주 적은 숫자만이 그 입구를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66:3.3 (1828.7) “너희들 중에는 진리에 가까운 다른 속담도 있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똑바르고 좁으며, 그리로 들어가는 문은 너무도 좁아서, 구원을 찾는 자들 중에 아주 적은 숫자만이 이 문을 통해 입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문도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한다는 교훈도 너희가 알고 있다. 이 속담은 어떤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러나 내가 선포하는 것은 구원이 무엇보다도 너희들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이 비록 좁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문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모든 자들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넓다. 그리고 아들은, 신앙을 가지고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자는 이 우주의 어떤 자녀라도 결코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숙한 상태에 머무는 것을 즐기고 자기만족을 탐닉하면서, 왕국에 들어가기로 미루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위험이 있는데: 그들이 영적 체험으로서 왕국에 들어가기는 거절하다가, 그 후에는 더 영광스러운 길이 앞으로 제시될 때 그리로 들어가겠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인간성의 모습으로 왔을 때 왕국을 거절하였던 자들이 신성의 모습으로 계시되는 때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이러한 모든 이기적인 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도무지 너희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너희는 이미 왕국의 시민이 될 기회를 가졌었지만, 주어진 그러한 모든 자비를 거부하였다; 문이 열려있을 때 여러 번 초대하였지만 너희가 번번이 거절하였다. 이제는, 구원을 거부한 너희들에게는 문이 닫혔다. 이 문은 자기 영화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오려는 자들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구원은 내 아버지의 뜻을 전심으로 봉헌하는데 필요한 대가를 억지로 치르려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 혼은 아버지의 왕국에 등을 돌리면서, 몸과 마음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님, 저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희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때

나는 너희가 나의 양 무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땅에 있는 왕국에서 사심-없는 봉사의 상을 받은 사람들 속으로,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저희들이 당신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당신이 저희를 길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할 때에, 나는 다시 한 번 너희가 영적 이방인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자비의 사명활동에서의 동료 하인이 아니라는 것과;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는 것을 선언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세상의 심판관들이 너희에게 '사악한 불의를 즐겨 행한 너희 모두는 우리로부터 떠나라.'고 말할 것이다.

166:3.5 (1829.2) "그러나 두려워 마라.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문을 통하여 진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그러한 영속하는 구원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구원을 거절하는 너희는 장차, 아브라함 자손의 선지자들이 영화로운 왕국에서 이방 나라들의 믿는 자들과 함께 앉아 생명의 빵을 함께 나누고 그곳에 있는 물로 목을 축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적 힘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변함없이 공격하여 왕국을 차지할 사람들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서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보라, 처음 된 많은 사람들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들이 처음 되는 일이 자주 있을 것이다.”

^{166:3.6 (1829.3)} 이것은, 직선적이며 좁은 길을 제시하는 오래되고 잘 알려진 격언에 비하여 참으로 새롭고도 묘한 해석이었다.

^{166:3.7 (1829.4)}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은 예수가 초기에, “너희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영이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말씀의 의미를 아는데 매우 느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은 영원히 참된 것으로 남아있다: “보라, 내가 사람들의 가슴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나에게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에게 생명의 빵을 공급하겠으며; 우리는 영과 목적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 파라다이스 아버지를 찾는 오랜 그리고 열매 가득한 예배봉사 속에서 언제까지나 형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함께 구원될 사람들이 많을지 또는 적을지 하는 문제는, “내가 그 문이며, 내가 그 새로운 생명의 길이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가는 배에 태워질 것이다.”라는 그 초청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에 달려있다.

166:3.8 (1829.5) 모든 물질적인 방해물 헤쳐 나갈 목적으로 영적 힘을 사용할 필요성과, 하느님의 자유화된 아들들로서 영속에서의 새로운 생명에 대한 지극히 중요한 영적 가치를 파악하는 기회를 방해할 수도 있는 모든 현세적 방해물들을 극복할 필요성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사도들마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제 4 장. 우연한 사고에 관한 가르침

166:4.1 (1830.1) 팔레스타인 사람들 대부분은 하루에 두 끼의 식사를 하였지만, 예수와 사도들은 여행을 할 때 늘 정오에 휴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로 가는 길에서 그러한 정오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멈추었을 때, 도마가 예수께 질문을 하였다. “주(主)여, 오늘 아침에 오던 길에서 말씀한 것들 중에,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 신기하고 비상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에 영적 존재들이 관여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으며, 또 한 가지는 천사들과 다른 영적

존재들이 어떤 우연한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166:4.2 (1830.2) 도마의 질문에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너와 그토록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내게 그런 질문을 계속하느냐?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너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살면서, 자신의 개인적 양식을 위해서는 하늘의 권세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철저히 거부하는 지를 네가 지켜보지 못하였느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우리도 똑같이 살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계시와, 그의 고통 받는 자녀들을 때로 고쳐 주었던 것을 제쳐놓고도, 이 세상의 물질적인 일생 속에서 현시되는 영적 세상의 힘을 보고 있느냐?

166:4.3 (1830.3) “너희 조상들은 모두, 번영은 신성한 허락을 인정받은 표시이다; 재난은 하느님의 언짢음의 증거라고 너무나 오랫동안 믿어왔다.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그러한 믿음은 미신들이다. 가난한 자의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즉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너희가 지켜보지 않느냐? 만일 부유함이 신성한

은혜를 입증한다면, 부자가 하늘로부터 온 이 좋은 소식을 믿기를 왜 그토록 여러 번 거절하겠는가?

166:4.4 (1830.4) “아버지는 정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신다; 마찬가지로 햇빛도 온당한 자나 부당한 자에게나 비추신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희생제물에 섞은 것을 너희가 알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고 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실로암의 망대를 짓다가 18명이 떨어져 죽은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죽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형제들 보다 더 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무리들은 단순히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사고들의 하나로 인한 희생자였을 뿐이다.

166:4.5 (1830.5) “너희의 삶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166:4.6 (1830.6) “1. 너와 너의 동료들이 이 땅 위에 함께 삶을 사는 일생의 한 부분으로 보통 일어나고 있는 저들 사건을 네가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할지도 모른다.

166:4.7 (1830.7) "2. 자연에서의 우연한 사고, 사람에서의 재난이, 그러한 발생사건들이 도저히 미리 계획된 것도 아니고, 다른 한편으로도 세상에 있는 영적 기세들에 의해 산출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것 중의 하나에 어찌다가 네가 우연한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166:4.8 (1830.8) "3. 세상을 지배하는 자연법칙에 순응하려는 너의 직접적인 노력의 수확을 네가 거둘 수도 있다.

166:4.9 (1830.9) "자기 땅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번 열매를 얻고자 하였으나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자, 농부들을 앞에 불러서 말했다;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세 번이나 왔지만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잘라 버려라. 왜 땅만 못쓰게 하느냐?' 그러나 우두머리 농부가 주인에게 말했다; '그 주변의 땅을 파고 거름을 줄 수 있도록 일 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리하여도 다음 해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잘라 버리겠습니다.' 그들이 수확하는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였을 때, 그 나무는 잘 살고 상태가 좋았으므로, 그들은 많은 수확을 보상받았다.

166:4.10 (1831.1) “질병과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육체적인 상태는 물질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만 한다; 건강이 하늘에서 오는 행운이 아니듯이, 질병도 하느님의 진노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166:4.11 (1831.2) “아버지의 인간 자녀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누구나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수용력을 가졌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사람 자녀들에게 물리적 것들을 차별 없이 증여하고 있다. 영적 선물을 증여할 때에는, 아버지께서 이 신성한 자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용력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신다. 비록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차별대우하지 않으실 지라도, 영적 선물들을 수여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신앙과, 아버지의 뜻을 항상 따르고자 하는 그의 의지에 의해 제한을 받으신다.”

166:4.12 (1831.3) 필라델피아로 가면서, 예수는 사고와 질병 그리고 기적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계속하여 대답하고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이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다. 한 시간 동안의 가르침으로도 일생토록 믿어오던 것을 충분히 바꾸지는 못하였으므로, 예수는 그들에게 납득시키고자 하는 자기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죽고 부활할 때까지도 이 땅에서의 그의 사명의 의미에 대한 파악이 잘 안되었다.

제 5 장. 필라델피아에서의 집회

^{166:5.1 (1831.4)}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은 필라델피아에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아브너와 그의 연관-동료들을 만나기 위하여 길을 떠났다. 페레아에 있는 모든 도시들 중에서, 가장 큰 무리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들이 필라델피아안에서 70인의 가르침을 포용하여, 그로써 하늘의 왕국에 들어갔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회당은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公會)의 감독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와 그의 연관-동료들이 가르치지 못하도록 금지하지 않았었다. 이 때 아브너는 필라델피아 회당에서 하루에 세 번씩 가르쳤다.

^{166:5.2 (1831.5)} 바로 이 회당이 나중에 그리스도교인 교회가 되었고, 동쪽 지방으로 복음을 공급하기 위한 선교 본부가 되었다. 이곳은 오랫동안 주(主)의 가르침에 대한 요새였으며, 여러 세기 동안 이 지역에서 독보적인 그리스도교 교육의 중심지였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필라델피아의 유대인들과 항상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필라델피아의 신자들 회중과 심각하게 다투기 시작하였다. 아브너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책임자가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계속하였다. 예루살렘과의 이 불화로 인하여, 아브너에 대한 기록과 복음에 대한 그의 업적이 신약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예루살렘과 필라델피아 사이의 이러한 반목은 야고보와 아브너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훼파된 후에도 한동안 계속되었다. 안디옥이 북서쪽에서 초대 교회의 본부였던 것처럼, 필라델피아는 남동쪽에서 실제적인 본부였다.

아브너가 초대 그리스도교 교회의 모든 영도자들과 불화 하였던 것은 불행이었음에 틀림없다. 그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예수의 형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치리와 관리-행정에 관한 의문점에서 서로 사이가 벌어졌으며; 바울과는 철학과 신학적인 이견 때문에 헤어졌다. 아브너의 철학은 그리스적이기보다는 바빌론 사상에 더 가까웠으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다음에는

그리스-로마의 신자들에게 신비로운 일들에 대하여 반대될 만한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예수의 가르침을 개조하려는 바울의 모든 시도들을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166:5.5 (1832.1) 그래서 아브너는 하는 수 없이 고립된 일생을 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예루살렘에 기대지 않는 교회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후에 베드로의 지지를 받은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감히 도전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그로 하여금 전에 같은 연관-동료들이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그 후에 그는 바울에게 도전하였다. 그가 비록 이방인을 향한 전도에 있어서는 바울과 전적으로 깊이 공감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와 논쟁이 있을 때 그를 지지하기는 하였지만, 전파하기 위하여 선택한 예수의 가르침들에 대한 바울의 해석에는 몹시 반대하였다. 아브너는 말년에 바울을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생명의 가르침들을 교묘하게 변조시킨 자"라고 비난하였다.

166:5.6 (1832.2) 아브너의 말년과 그 후 얼마 동안,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자들은 그가 사셨던 대로 그리고 가르치셨던 대로,

이 땅에 있는 어떤 무리들보다도 더 순전하게 예수의 종교를 유지하였다.

166:5.7 (1832.3) 아브너는 89세의 나이로, 서기 74년 11월 21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왕국의 복음을 신실하게 믿었고 또한 가르쳤다.

제 167 편 필라델피아 방문

167:0.1 (1833.1) 페레아에서 사명활동한 이 기간 동안, 70인이 활동하고 있는 여러 장소에 예수와 사도들이 방문하겠다는 것을 알렸을 때, 펠라에서 적어도 두 명의 사도들은 군중들을 가르치기 위해 떠나는 실천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오직 열 명만이 주(主)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예수가 필라델피아로 갈 준비를 하자,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모여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펠라에 있는 야영지로 돌아갔다. 주(主)가 페레아를 방문하기 위하여 펠라의 야영지를 떠나실 때, 300내지 500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필라델피아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600명 이상이 그를 따라왔다.

167:0.2 (1833.2) 열 명의 나환자를 고친 일 외에는, 데카폴리스를 지나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페레아 전도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이 시기는 복음이 기적 없이도 힘 있게 전파된 기간이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의 개인적 현존이 없었고, 심지어는 사도들도 없이 이루어졌다.

167:0.3 (1833.3) 예수와 열 명의 사도들은 2월 22일 수요일에 필라델피아에 도착하였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최근의 여행과 활동으로 인한 피로를 풀면서 보냈다. 그 금요일 밤에 야고보가 회당에서 강론을 하였으며, 다음 날 저녁에는 총회가 소집되었다. 그들은 필라델피아와 인근 마을들에서 복음이 잘 전파되는데 대하여 많은 기쁨을 향유하였다. 다윗의 메신저들도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왕국이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다마스쿠스에서도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제 1 장. 바리새인들과의 아침 식사

167:1.1 (1833.4) 아브너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매우 부자이면서 영향력 있는 어느 바리새인이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었는데, 안식일 아침 식사에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다. 이 무렵에 예수가 필라델피아에 오시리라는 소문이 퍼져있었으므로; 많은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큰 무리의 방문객들이 예루살렘과 다른 여러 곳으로부터 모여들었다. 따라서 약 40 명의 영도하는 사람들과 몇 명의 율법사들이, 주(主)께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 아침 식사에 초대되었다.

167:1.2 (1833.5) 예수가 아브너와 이야기하면서 문 옆에 서 계시는데, 주인이 자리에 앉은 후에, 영도하는 예루살렘 바리새인들 중 한 사람이며, 산헤드린의 회원인 한 사람이 자기 습관대로 곧장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의 왼쪽 명예석에 앉았다. 그러나 이 자리는 주(主)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었으며, 오른쪽 자리는 아브너가 앉게 되어 있었으므로, 주인이 그 예루살렘 바리새인에게 손짓하여 왼쪽 네 번째 자리에 앉도록 하자, 이 지체 높은 사람은 자기가 명예의 자리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몹시 화가 났다.

167:1.3 (1834.1) 곧 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았고,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이거나 또는 복음에 우호적인 사람들이었으므로, 서로 즐겁게 인사를 나누었다. 다만 그의 적들만이, 주(主)께서 식사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예식으로 손을 씻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아브너는 식사 시작 전에는 손을
씻었으나 음식이 나오는 동안에는 씻지 않았다.

167:1.4 (1834.2)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오랫동안 만성병으로
시달리다가 이제는 수종(水腫) 증세를 보이고 있는 한
사람이 길에서 안으로 들어왔다. 이 사람은 믿는 자였으며,
최근에 아브너의 연관-동료들로부터 세례를 받았었다. 그
사람이 예수께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람이 가득 메워진 군중들을 피하면서
주(主)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이 식사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을 주(主)는 잘 알고 계셨다. 이 사람은 그곳에서 기적은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자신의 딱한 상태가 주(主)의 연민에게 호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가슴속에 궁리하였다. 그리고 그는 틀리지
않았는데, 그가 방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에서 온 자아-
정의로운 바리새인과 예수가 그를 주목했기 때문이었다.
바리새인은, 그러한 자가 이 방에 들어오도록 허용된 것에
대해 분개심을 나타내는 말을 재빨리 뱉었다. 그러나
예수가 그 병자를 보시고 매우 온화한 미소를 띠셨으므로
그는 다가와서 바닥에 앉았다. 식사가 끝나자 주(主)는

손님으로 온 연관-동료들을 바라보시고, 수종증에 걸린 그 사람을 의미심장하게 잠깐 보신 후에, 말씀했다; “나의 친구들아, 이스라엘의 선생들과 학식 있는 율법사들아, 내가 한 가지 질문을 너희에게 하고 싶다: 병들어 고생하는 자를 안식일 날에 고쳐주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냐?” 그러나 그곳에 온 그들은 예수를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167:1.5 (1834.3) 그러자 예수는 앉아있는 그 병자에게로 가셔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말씀하였다. “일어나 네 길을 가라. 네가 고쳐달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너의 가슴속에 있는 갈망과 너의 혼에서의 신앙을 알고 있다.” 그 사람이 방을 나서기 전에, 예수는 자리로 돌아와서 말씀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왕국에 들어오라고 너희를 유혹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왕국에 들어온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너희들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과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인데, 너희 중에 누구라도 자신의 애지중지하는 동물이 안식일에 우물에 빠지면, 즉시 가서 그것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대답하려 하지 않았고, 주인은 일이 되어가는 것을 승낙하는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예수는 일어나서 모든 참석자들에게 말씀하였다. “나의 형제들이여, 너희가 결혼 잔치에 초대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도,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네게 와서 그 손님에게 자리를 내어 주라고 요청할 것이다. 이 사건 안에서,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낮은 자리로 옮겨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지혜일 터인데, 너희가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잔칫상에 가서 제일 낮은 자리를 찾아서 거기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손님들을 보다가 너에게 ‘나의 친구여, 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았습니까? 와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손님들 현존 안에서 영화로운 자가 될 것이다. 자신을 높이려는 자는 누구든지 낮아질 것이요, 반면에 자신을 낮추려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가 저녁 식사나 만찬을 베풀 때, 네 친구, 네 형제, 너와 가까운 사람들, 또는 부유한 이웃들, 그들이 답례로 너희를 자기 잔치에 초대할 것이고 그렇게 너희가 보상을 되돌려 받게 될, 그러한 이웃들만을 항상 청하지는 마라. 잔치를 베풀 때에 가끔 가난한 자, 불구자, 눈이 먼 자들을 초대하여라. 이런 방법으로 너희는 너희 가슴 안에 축복을

받을 것이니, 이는 절름발이와 불구자들은 너희의 사랑 넘친 사명활동을 갚을 수가 없음을 너희가 잘 알기 때문이다.”

제 2 장. 큰 만찬의 비유

^{167:2.1 (1835.1)} 바리새인의 아침 식탁에서 예수의 말씀이 끝나자, 율법사 한 사람이 나타나서, 침묵을 깨고자 하여 아무 생각 없이 말하였다: “하느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게 되는 사람이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이것은 당시에 보통 하는 말이었다. 그러자 예수는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였는데, 그의 친절한 주인까지도 가슴에 새길 수밖에 없었다. 예수는 말했다:

^{167:2.2 (1835.2)} “어떤 통치자가 큰 만찬을 베풀고 많은 손님들을 초대하였으며, 만찬 시간이 되자 자기 하인들을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보내어,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핑계를 대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방금 농장을 샀기 때문에, 검사하러 가야하니, 나의 결례를 너그러이 받아주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다섯 쌍의 소를 샀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러 가야만

하니; 나의 결례를 너그러이 받아주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아내와 방금 결혼하였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돌아와 이 모든 것을 주인에게 보고하였다. 이 말을 들은 집주인은 매우 화가 났고, 종들에게 돌이켜 말하였다. ‘내가 이 결혼 잔치를 준비시키고; 살찐 송아지들을 잡았으며, 손님을 맞을 준비가 다 되었지만, 그들이 나의 초대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각자 자기 땅과 자기 일터로 가버렸고, 나의 잔치에 초대하러 간 내 하인들에게 무례함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그러니 도시의 길거리와 골목들, 큰길은 물론 통하는 모든 길로 빨리 나가서, 가난한 자와 버림받은 자들, 눈이 먼 자들과 절름발이들을 막론하고 모두 데려 와서 결혼 잔치에 손님이 있도록 하라.’ 그래서 하인들이 주인의 명령대로 하였지만, 아직도 손님을 위한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러자 주인이 자신의 하인들에게 말했다; ‘길거리와 시골에 지금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인들이 주인의 명령대로 하여 집이 가득 찼다.”

167:2.3 (1835.3)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모두 떠나버렸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 냉소하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은 그 날 아침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달았음을 내 보였는데, 왜냐하면 그가 그 날 세례를 받고 대중 앞에서 복음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기 때문이다. 아브너는 밤에 신자들의 총회에서 이 비유를 설명하였다.

167:2.4 (1835.4) 다음 날 사도들은 모두, 큰 잔치에 관한 이 비유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해석해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는 서로 다른 이 해석들을 재미있게 들었지만, 그 비유를 잘 납득할 수 있도록 더 도움을 주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다만 “각자 자신의 혼 속에서 스스로 그 의미를 찾도록 하여라.”고 말씀하실 뿐이었다.

제 3 장. 허약한 영을 가진 여인

167:3.1 (1835.5) 아브너는 주(主)가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었는데, 산헤드린의 명령으로 그의 가르침이 모두 금지된 이후 처음으로 예수가 회당에 모습을 나타내셨다. 예배봉사가 끝났을 때, 예수는 그 앞에 있는 몸이 몹시 굵고 그리고 풀이 죽은

표정의 나이가 든 여인을 내려다 보셨다. 이 여인은 오랫동안 두려움에 시달려 왔으며, 모든 기쁨이 그녀의 일생 속에서 사라졌다. 예수가 단상(壇上)에서 내려오면서, 그는 그녀에게 가서 굽은-모습을 한 어깨에 손을 대시며 말하였다: “여인아, 네가 믿기만 한다면, 너의 허약한 영(靈)으로부터 온전히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8년 이상이나 몸을 굽히고 두려워하는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여인은 주(主)의 말씀을 믿었으며, 신앙으로 즉시 똑바로 서게 되었다. 똑바로 서게 된 자신을 발견한 이 여인은 소리를 높여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였다.

^{167:3.2 (1836.1)} 이 여인의 병은 전적으로 정신적인 원인이었으며, 그녀의 휘어진 모습도 그녀의 억압된 마음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가 실제적인 육체적인 병을 고치셨다고 생각하였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회당의 회중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우호적이었지만, 회당의 우두머리 통치자는 비(非)우호적인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예수가 육체적인 질병을 고친 것에 대하여 회중들과 의견을 나누다가, 예수가 감히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였다는 것에 분개하면서, 회중

앞에 나아가 말하였다: “사람에게는 모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옛새나 있지 않는가? 그러니 이들 일하는 날에 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러지 말라.”

167:3.3 (1836.2) 비(非)우호적인 통치자가 이렇게 말하자, 예수는 단상에 돌아가서 말씀하였다: “왜 위선을 부리느냐? 너희는 모두 안식일에 마구간에서 소를 풀어내어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만약에 그러한 봉사가 안식일에 허용된다면, 오늘이 안식일일지라도, 18년 동안 악에 묶여 있던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도 이러한 묶임에서 풀려나 해방과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그리고 그 여인이 계속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자, 그의 비난은 부끄럽게 되었으며, 회중들은 그녀가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 그녀와 함께 기쁨을 향유하였다.

167:3.4 (1836.3) 이 안식일에 예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인하여 회당 우두머리 통치자가 물러났고, 예수의 추종자가 그 자리에 앉았다.

167:3.5 (1836.4) 공포에 시달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들의 허약한 영으로부터, 정신적인 우울증으로부터, 그리고 공포의 속박으로부터 예수가 구해주시는 일은 자주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고통이 육체적인 병 또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167:3.6 (1836.5) 예수는 일요일에 다시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날 오후에 도시 남쪽으로 흐르는 강에서 아브너에게 세례를 받았다. 다음 날 예수와 열 명의 사도들은 펠라에 있는 야영지로 돌아가려고 하였지만, 다윗의 메신저들이 도착하여,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있는 그의 친구들로부터 급한 소식을 예수께 전하였다.

제 4 장. 베다니에서 온 소식

167:4.1 (1836.6) 2월 26일 일요일, 아주 늦은 밤에 베다니로부터 한 전령이 필라델피아에 도착하였으며,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그가 매우 아픕니다.”라는 소식을 가져왔다. 이 소식은 저녁 회의가 끝나서 자기 위해 사도들을 떠나실 무렵에 예수께 전해졌다. 처음에 예수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자신의 몸 밖에, 건너편에 있는 다른 어떤 존재와 교통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러한 이상한 잠깐의 순간 중의 하나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 메신저를 쳐다보면서 사도들도 듣는 가운데 말하였다: “이 병은 실제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아들을 높이기 위하여 이것이 쓰일 것이라 것을 의심하지 마라.”

167:4.2 (1837.1) 예수는 마르다, 마리아와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를 매우 좋아하였다; 뜨거운 애정으로 그들을 사랑하였다. 그가 처음에 가졌던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은 즉시 가서 도와주는 것이었지만, 다른 계획이 그의 병합된 마음에 떠올랐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영도자들이 왕국을 받아들이리라는 희망은 거의 포기하였지만, 아직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였고,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계획이 이제 생각에 떠올랐다; 이 땅에서의 자신의 전체 생애 중에서 가장 심오하고도 엄청난 외향적인 일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보여주기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결정하였다. 유대인들은 기적을-베푸는 해방자의 관념에 젖어 있었다. 물질적인 기적을 베풀거나 정치적인 힘을 일시적으로 일으키는 일에 의존하는 것을 거부하였지만,

지금은 이제까지 나타내지 않은 삶과 죽음에 대한 힘의
현시활동을 위하여 아버지의 허락을 요구하였다.

167:4.3 (1837.2) 유대인들은 죽은 그날로 시신을 묻는 것이 실천
관행이었는데; 이러한 무더운 날씨에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 그들은 단지 혼수상태에 있는 사람을 무덤 안에
두어서 둘째 날 또는 셋째 날에 무덤에서 나오곤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이나 혼이 육신
근처에서 이틀이나 사흘 동안 떠돌다가 사흘이 지나면
머물지 않는다는 것; 나흘이 되는 날부터 부패가 한창
진행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누구도 그
무덤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가 베다니로 출발할 준비를 하기 전에 이틀을 더
필라델피아에 머무르신, 그러한 이유들 이었다.

167:4.4 (1837.3) 따라서, 수요일 아침이 되자 예수는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였다. "지금 즉시 유대 지역으로 다시 갈
준비를 하자." 이러한 주(主)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자기들끼리 물러가서 서로 상의를 하였다. 야고보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예수로 하여금 다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시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데에 그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하나같이 와서 말하였다. 야고보가 말했다; “주(主)여, 몇 주 전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영도자들은 당신을 죽이려 하였고, 사람들은 당신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다시 유대 지역으로 가시려는 것은 우리들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167:4.5 (1837.4) 그러자 예수는 말씀하였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12시간 있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겠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간다면, 빛이 있으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밤에 걸어간다면, 빛이 없으므로 자칫 넘어지기 쉬울 것이다. 나의 날이 계속되는 한에는, 유대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 이들 유대인에게 한 번 더 기적을 행하고자 한다; 그들 자신들의 조건—아버지의 힘과 아들의 사랑에 대한 눈에 보이는 현시활동과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의 조건—에서라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려고 한다. 게다가,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에 빠져있고, 그래서 내가 가서 깨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167:4.6 (1837.5) 그러자 사도들중의 하나가 말했다; “주(主)여,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반드시 깨어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죽었다는 것을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지만, 예수는 나사로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의미로 말씀한 것인데, 사도들이 납득하지 못하자, 분명하게 다시 말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하지만 설사 다른 사람들은 그로인하여 구원받지 않는다 해도, 결국에는 너희는 이것을 새로운 이유로 나를 믿게 될 것이라는 것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기에 없었던 것이 기쁘다; 너희가 목격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 모두는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면서, 힘을 강화하여야만 한다.”

167:4.7 (1838.1) 유대 지방으로 가시려는 것을 만류할 수 없게 되고, 어떤 사도들은 함께 가는 것조차도 질색하며 싫어할 때, 도마가 동료들에게 제안하여 말했다; “우리의 두려움을 주(主)께 말씀드렸지만, 주(主)는 베다니로 가시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끝이 왔다는 데에 만족한다; 그들이 분명히 주(主)를 죽이겠지만, 그것이 주(主)의 선택이라면, 용감한 사람답게 행동하자; 우리도 주(主)와 함께 죽을 수 있도록 같이 가자.” 항상 그러하였듯이; 용기를

불러일으키거나 숙고할 필요가 있는 문제에서, 도마는 항상 열 두 사도들의 기둥이었다.

제 5 장. 베다니로 가는 길

167:5.1 (1838.2) 유대 땅으로 가는 길에는 50명 정도 되는 친구들과 적들이 일행을 이루며 예수를 따랐다. 수요일 점심식사 시간이 되자, 예수는 사도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구원의 조건”에 대하여 말씀하였으며, 이 교훈의 끝에 가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세금 징수원)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였다. 예수는 말씀하였다: “그러면, 너희도 알다시피, 아버지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구원은 신성한 가족 안에서 아들신분을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자아-정의로움에서의 노력들이 하느님의 은혜를 살 수 없으며, 대중 앞에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였더라도, 가슴속에 살아있는 신앙의 부족을 보상해 주지는 못한다. 너희의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예배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너희의 혼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야기하려는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간 두 사람으로서,

그것이 잘 예시된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신에게 기도했다; ‘오 하느님, 제가 여느 사람들, 착취하는 자, 배우지 못한 자, 부당한 자, 간음한 자, 심지어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 합니다;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찌감치 떨어져 서서, 눈을 하늘을 향해 그렇게 많이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다만 가슴부분을 치며 말하였다, ‘하느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바리새인 보다 세리가 하느님의 인정을 받고 집에 돌아갔으니, 이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자는 누구든지 낮아질 것이지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167:5.2 (1838.3) 그날 밤 여리고에서, 적대적인 바리새인들이, 한때 그들의 동료들이 갈릴리에서 했던 것처럼, 결혼과 이혼에 대한 토론에 주(主)를 끌어들여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는 이혼에 관한 그들의 율법과 충돌하도록 유도하는 그들의 노력을 숨씨 있게 피하였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좋은 종교와 나쁜 종교를 실 예로 보여주었듯이, 그들의 이혼 실천 관행은,

모세의 이들 이혼조항 규정에 대한 바리새인 해석의 불명예스러운 느슨함과 대조되어, 유대 율법의 더욱 좋은 결혼 법을 대조하는데 사용되었다. 바리새인은 가장 낮은 기준으로서 자신을 심판하였으며, 세리는 가장 높은 이상으로서 자신을 청산하였다. 바리새인에게, 헌신은 자아-정의로운 비(非)활동을 유도하는 수단이었고, 거짓된 영적 안전의 보장이었다; 세리에게 헌신은, 회개와 고백 그리고, 신앙에 의하여, 자비로운 용서를 받아들일 그 필요성의 실현에 자신의 영혼을 분발시켜 일어나게 하는 수단이었다. 바리새인은 공의를 구하였지만; 세리는 자비를 구하였다. 우주의 법칙은 이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는 찾아낼 것이다.

^{167:5.3 (1838.4)} 예수는 이혼에 관하여 바리새인과 논쟁에 빠지는 것은 거절하였지만, 결혼에 관하여 가장 높은 이상의 적극적인 가르침을 선포하였다. 그는 결혼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고상한 것으로 칭찬하였다.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방종하며 부당한 이혼 실천 관행을 강력하게 반박하였는데, 그들은 당시에 남자가 아주 하찮은 이유로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음식

숨씨가 없는 것, 집안을 잘 돌보지 못한 것, 또는 그가 보다 예쁜 여인과 정을 통하게 되었다는 이유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것들이었다.

167:5.4 (1839.1) 바리새인들은 가지각색의 이런 쉬운 이혼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섭리라고 가르치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예수는 결혼과 이혼에 관계된 어떤 의견도 나타내지 않았으며, 결혼 관계의 이러한 부끄럽고 경멸스러운 행동을 아주 몹시 비난하였으며, 그들이 여인들과 아이들에 대해 불공정한 것을 지적하였다. 주(主)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어떤 이혼 실천 관행도 허용한 적이 결코 없으시며; 남자와 여자의 평등함에 관계된 가르침들에만 찬성하였다.

167:5.5 (1839.2) 비록 결혼과 이혼을 다스리는 새로운 명령을 예수가 주지는 않았지만, 그는 유대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법과 보다 높은 가르침에 따라 부끄럽지 않게 살 것을 촉구하였다. 그는 그들의 실천 관행이 이들 사회노선과 더불어 개선되도록 하려는 자신의 노력에서 변함없이 기록된 성서에 호소하였다. 이와 같이 결혼에 대한 높고도

이상적인 개념을 지지하면서, 예수는 그들의 기록된 율법이나 무척 소중하게 간직해 온 이혼 특권이 대표하는 사회실천 관행에 대하여 자신에게 질문하는 자들과의 충돌을 숨씨 있게 피하였다.

^{167:5.6 (1839.3)} 과학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주(主)가 확실한 언급을 피하는 것을 사도들은 납득하기가 힘들었다. 그들은 그의 이 땅에서의 임무가 오로지 영적이고 종교적인 진리들 계시에 국한된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지는 못하였다.

^{167:5.7 (1839.4)} 예수가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을 마친 후, 그 날 저녁 늦게 사도들이 은밀히 찾아와 많은 질문들을 하였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많은 오해들이 이 질문들에 대한 그의 대답으로 해결되었다. 이 토론을 마치면서 예수는 말씀했다; “결혼은 명예로운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갈망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신의 땅에서의 임무를 홀로 추구한다는 사실은 결혼에 대한 갈망을 반영하는 일에서는 그 어떤 점에서도 결코 관계가 없다. 내가 그렇게 일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지만, 바로 그 아버지가 남성과 여성의 창조를 지도하였으며,

남자와 여자들이 자녀들을 받아들이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가정을 꾸미는 일에서, 이들 부모들이 하늘과 땅의 조물주와 협동자가 되는 그러한 창조하는 일에서, 자신들의 최고의 봉사와 필연적인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은 신성한 뜻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만 할 것이고, 그리고는 자기 아내와 연관하여, 그들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167:5.8 (1839.5)} 그리고 예수는 이러한 방법으로 결혼에 대해 많이 염려하는 사도들의 마음을 풀어주었고 이혼에 관한 많은 오해를 씻어주었다; 동시에 사회적인 연합에 대한 그들의 관념을 증강해주기 위하여 그리고 여자와 어린이들 그리고 가정을 그들이 더욱 존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

제 6 장.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심

^{167:6.1 (1839.6)} 그 날 저녁, 결혼에 관계된 예수의 메시지와 아이들에 대한 축복의 소문이 온 여리고에 퍼져서, 다음 날 아침, 예수와 사도들이 떠날 준비를 하기 훨씬 전, 아침 식사시간도 아직 이르기 전에,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팔에 안거나 혹은 손을 잡아 이끌며 예수 숙소에 찾아와서

그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였다. 사도들은 어린이들과 함께 모여든 어머니들을 보려고 밖에 나갔다가,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였지만, 이 여인들은 주(主)가 아이들에게 직접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축복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거절하였다. 사도들이 큰 소리로 이 어머니들을 꾸짖자, 예수는 소란스런 소리를 들으시고 나와서 화를 내듯이 그들을 책망하였으며, 말씀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도록 하고; 하늘의 왕국이 저들의 것이니 그들을 막지 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어린아이처럼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인데, 그곳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되기까지 자라간다.”

167:6.2 (1840.1) 사도들에게 말씀을 마친 주(主)는 모든 아이들을 받아들이시며,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아이들의 어머니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였다.

167:6.3 (1839.8) 예수는 사도들에게 천상의 맨션들에 대하여 종종 말씀하였으며, 상승하는 하느님의 자녀들은 마치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그곳에서 영적으로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이 날 이들

아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은 지켜보고 있는 네바돈의 지능존재들이 우주의 창조자와 함께 노는 여리고의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성스러운 것은 종종 그렇게 평범한 것으로 나타난다.

167:6.4 (1839.9) 팔레스타인에서의 여인들의 지위는 예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많이 향상되었다; 만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공들여 가르쳤던 것을 그토록 멀리 떠나지 않았더라면, 모든 세상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167:6.5 (1839.10) 아이들을 일찍이 신성한 경배의 습관에 종교적으로 훈련하는 것에 대한 토론과 연결하여, 예수가 경배하고 싶은 충동으로 이끄는 하나의 영향으로서,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 아름다움에 대한 커다란 가치를 사도들에게 강조한 곳도, 역시 여리고에서 이었다. 주(主)는 교훈과 모범에 의해, 창조의 자연적 주변 환경 가운데에서 창조자에게 경배하는 것의 가치 있음을 가르쳤다. 그는 나무들 사이에서 그리고 자연 세상의 낮은 창조계 가운데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을 더 좋아하였다. 그는 창조자 아들들의 반짝이는 별들의

영역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장관을 두루 통하여 아버지를 깊이 사색하는 기쁨을 향유했다.

167:6.6 (1839.11) 사람은 자연의 임시오두막 안에서 하느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느님과의 영적 교제에 대한 지능적 접근과 관련하여 인간의 감정이 최고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단순함이 있으면서도 예술적인 장식으로 꾸민 아름답고, 성스러운 장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진리(眞), 아름다움(美), 그리고 거룩함은 참된 경배를 힘차게 그리고 효력 있게 돕는다. 그러나 영적 교제가 단순한 거창한 치장으로 그리고 사람의 정교하고 허세부리는 예술로 과도하게 장식한 것에 의해서 촉진되지 않는다. 아름다움(美)은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울 때 가장 종교적이다. 아름다운 모습이 빠져있고, 명랑한 기분과 영감을 주는 성스러움이 도무지 비어있는 차갑고 메마른 방에서 어린아이들이 대중경배에 대한 그들의 첫 번째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아이는 바깥의 자연에서 처음으로 경배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그가 매일 살고 있는 집과 같이 최소한 물질적으로 매혹적이고

예술적으로도 아름다운 건물, 종교적 집회가 열리는 공공 건물로 부모를 따라가야 한다.

제 7 장.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

167:7.1 (1840.6) 그들이 여리고에서 베다니로 가면서 언덕을 오르는 동안, 나다니엘은 계속 예수 옆에서 걸어갔으며, 하늘의 왕국과 관련하여 아이들 문제를 토의하다가 결국에는 천사들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다. 나다니엘은 마침내 주(主)께 이런 질문을 하였다.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며, 사두개인들은 천사들을 믿지 않으니, 하늘에서의 사명활동자들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무어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167:7.2 (1841.1) “천사 무리들은 창조된 존재들 중에서 별도의 계층이다; 그들은 필사 창조체들의 물질적인 계층과는 전적으로 다르고, 우주 지능의 독특한 무리로서 기능한다. 천사들은 성서에서 '하느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창조체의 무리가 아니다; 저 높은 곳에 있는 모론시아 세계를 통하여 이미 진보되어진 필사 사람의 영(靈)화된 영들도 아니고, 그들은 스스로 재생산하지도 못한다. 천사

무리들은 인간 종족과 오직 영적인 친족관계를 가질 뿐이다. 사람은 파라다이스에 계신 아버지께로 진보해 가면서, 한 때 천사들과 비슷한 상태를 거쳐 가기는 하지만, 필사 사람은 결코 천사가 되지는 않는다.

167:7.3 (1841.2) "사람과는 달리, 천사들은 죽지 않는다. 천사들은 그들 중의 일부가 루시퍼의 속임수에 넘어갔던 것처럼 우연히 죄에 가담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천사들은 천상에서 영적 하인이며, 모든 것에-지혜롭지도 않고, 모든 일에-힘 넘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충성된 모든 천사들은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하다.

167:7.4 (1841.3) "너희가 만일 신성하게 된 영적 눈을 갖게 된다면, 하늘들이 열린 것을 보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전에 너희에게 한 번 말하였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어느 세계가 다른 세계들과 접촉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의 역할 때문이며, 그러므로 내가 이 무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천사들은 너희를 지켜보면서 너희 가슴속에 있는 생각들을 아버지께 나아가

고자질하고, 육신적인 행위들을 보고하는, 영 세계의 첩자가 아니다. 아버지는 그 자신의 영이 너희들 안에 거하고 있는 한, 그러한 봉사는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천사 영들은 우주의 다른 먼 곳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조의 한 부분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관리 체제와 아들들의 우주 안에서 기능하면서, 인간 종족의 봉사에 배정되어 있다. 내가 이들 중의 많은 세라핌천사들이 사명활동 영들이라고 너희에게 가르쳤을 때, 상징적인 언어나 시적인 선율로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에서 겪는 너희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것은 진실이다.

167:7.5 (1841.4) 이 천사들 대부분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혼이 죄를 떠나 하느님을 찾기 시작할 때의 세라핌천사의 즐거움에 대하여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회개하는 한 죄인에 대한 기쁨이 천사들의 현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말했으니, 그로써 마찬가지로 영적 행복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필사 사람의 신성한 진보와 관련된, 더 높은 계층의 천상의 존재들의 실존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167:7.6 (1841.5) “또한 이 천사들은 사람의 영이 육신의 장막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그의 혼을 하늘에 있는 맨션으로 호송하는 수단에도 매우 많이 관련되어 있다. 천사들은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거처에서의 새로운 삶 사이에 있는 미지의 불확정적 기간 동안 사람의 혼을 안전하게 하늘의 힘으로 인도한다.”

167:7.7 (1841.6) 천사들의 사명활동에 관하여 나다니엘과 더 이야기하려고 하였지만, 마르다가 가까이 오는 바람에 멈추셨으며, 그녀는 주(主)가 베다니 가까이로 오시고 있다는 소식을, 동쪽으로 언덕을 오르시는 그를 보았던 친구들로부터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속히 서둘러서 그에게 인사하러 온 것이다.

제 168 편 나사로의 부활

168:0.1 (1842.1) 마르다가 베다니에서 가까운 언덕 꼭대기에 오르신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나갈 때는 정오가 막 지나갈 무렵이었다. 그녀의 남동생 나사로는 나흘 전에 이미 죽었으며, 정원 맨 구석에 있는 그들의 개인 묘지에 일요일 오후 늦게 묻혔었다.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은 것은 목요일, 오늘 아침이었다.

168:0.2 (1842.2)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병에 대한 소식을 예수께 전하였을 때, 그들은 주(主)가 무엇인가를 해 주실 것으로 자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사로가 몹시 아프다는 것을 알았고, 비록 예수가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일을 떠나면서까지 자신들을 도우러 오시리라고는 감히 생각지 못하였지만, 힘 있는 말씀만 하셔도 나사로가 즉시 나을 것이라는 그의 치유 힘을 자신하였었다. 그리고 메신저가 필라델피아를 향하여 베다니를 떠난 후 몇 시간도 못 되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것은 주(主)가 그의 병을 너무 늦게까지, 그가 몇 시간 전에 이미 죽었을 때까지도 모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168:0.3 (1842.3) 그러나 화요일 오후에 베다니로 돌아온 전령이 가져온 메시지 때문에 그들은 물론 모든 믿는 친구들도 매우 당황하였다. 그 메신저가 예수가 " 이 병은 실제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자기들에게 왜 아무 말씀도 없었는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다른 조연도 왜 하지 않았는지, 그들은 납득할 수 없었다.

168:0.4 (1842.4)

슬픔에 잠긴 자매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가까운 마을들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친구들이 왔다.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은,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에 살면서 그 마을을 이끌어 가는 부유하며 명예를 받는 유대인의 자녀들이었다. 세 사람 모두 예수를 오랫동안 열렬하게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매우 존중을 받았다. 그들은 광대한 포도원과 올리브나무 과수원을 유산으로 받았으며, 그들이 얼마만큼 부자인가 하는 것은 그들의 토지 안에 개인 무덤을 잘 제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 입증(立證)된다. 그들의 부모들은 이미 이 무덤에 묻혀 있었다.

168:0.5 (1842.5)

마리아는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이미 포기하고 비탄(悲嘆)에 빠져 있었지만, 마르다는 돌이 무덤 입구에 굴려져서 입구가 인봉(印封)되던 그 아침까지도 예수가 오시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었다. 그녀는 그때까지도 이웃 아이에게 베다니 동쪽 언덕 꼭대기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지켜보라고 당부하였다; 예수와 그의 친구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마르다에게 전한 것은 이 아이였다.

168:0.6 (1842.6) 마르다는 예수를 만나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主)여, 당신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형제가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많은 근심들이 마르다의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의심하는 듯한 표현을 하지 않았으며,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하여 주(主)의 행위를 의심하거나 비난하려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예수는 허리를
굽히시고, 그녀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하였다.
“마르다야, 오직 신앙만 가지면, 네 형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다; 당신이
하느님께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허락하리라는 것을 지금도 믿습니다.”

168:0.7 (1843.1) 그러자 예수는 마르다의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진실로, 나를 믿으며 사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실제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는 주(主)께
대답했다; “예, 저는 당신이 해방자이시며,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라는 것까지도 오래 전부터 믿어왔습니다.”

168:0.8 (1843.2) 예수가 마리아에 대하여 물어보셨기 때문에, 마르다는 곧 집으로 들어가서 동생에게 작은 소리로, “주(主)가 여기 오셨고 너를 찾으신다.”고 말하였다. 마리아가 이것을 듣고 곧 일어나 예수를 만나려고 서둘러서 나갔으며, 예수는 마르다를 만났던, 그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대로 계셨다.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친구들은 그녀를 위로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녀가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울기 위하여 무덤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68:0.9 (1843.3)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의 지독한 적들이었다. 이 때문에 마르다는 혼자서 그를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갔던 것이며, 마리아에게 주(主)가 찾으신다고 은밀하게 말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마르다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그의 적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어떤 불쾌한 사건도 피하고자 하였다. 마리아가 예수께 인사하러 나가는 동안 마르다는 일부러

집에 남아서 친구들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를 따라 나가서 뜻밖에도 주(主)의 현존과 마주쳤기 때문이다.

168:0.10 (1843.4) 마르다는 마리아를 예수께로 안내하였고, 마리아는 예수를 만나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당신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예수는 그들이 모두 나사로의 죽음을 심히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혼이 연민으로 감동되었다.

168:0.11 (1843.5) 애곡하던 자들은 마리아가 예수께 인사하는 것을 보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主)와 이야기하면서 위로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강한 신앙을 지키고 신성한 뜻에 완벽하게 복종하라는 간곡한 훈계를 받아들이는 동안,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168:0.12 (1843.6) 예수의 인간 마음은, 나사로 그리고 상을 당한 자매들에 대한 자신의 애정과, 믿지 아니하며 살인할 작정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현시하는 허식적인 애정 표현에 대한 자신의 경멸감과 모멸감 사이의 투쟁으로

인하여 크게 흔들렸다. 몇몇 거짓된 친구들이 나사로를 위해 외적으로 그리고 억지로 애곡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는 심히 분개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거짓된 슬픔은 가슴속에서 자기 자신을 향한 비통한 증오와 연관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유대인들은 진심으로 애곡을 하였는데, 그 가정의 실제 친구들이었기 때문이다.

제 1 장. 나사로의 무덤에서

168:1.1 (1843.7) 예수는 잠시 동안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나서, 조금 떨어져 있는 조객(弔客)들에게 물었다. “그를 어디에다 묻었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말하기를, “와서 보십시오.” 그리고 주(主)는 슬픔에 가득 찬 두 자매들을 따라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들을 따라오던 우호적인 유대인들이 그의 눈물을 보고, 그들 중에 하나가 말하였다. “주(主)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를 보라. 눈 먼 자의 눈을 뜨게 하였던 그가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 그들은 이윽고, 작은 자연 동굴로 만들어진 가족 묘 앞에 도착하였으며, 그 동굴은 정원의 맨 끝에 약 30 피트 가량 솟아 있는 바위 언덕 속에 있었다.

168:1.2 (1844.1) 예수가 왜 우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의 마음속에 기록된 대로, 인간 감정과 신성한 생각의 병합에 대한 기록을 참조해보지만, 우리는 모두 이러한 감정적 현시활동의 실제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 때 그의 마음속에 지나가는 아래와 같은 많은 감정과 생각들 때문에 예수가 우셨을 것이라고 믿기로 하였다:

168:1.3 (1844.2) 1. 그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진정어린 그리고 슬픔에 찬 동정심을 느꼈다; 자신들의 오라비를 잃은 이들 자매에게 실제로 깊은 인간 애정을 가졌다.

168:1.4 (1844.3) 2. 그는 많은 조객들이 더러는 진심으로 더러는 가장하는 군중으로 현존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었다. 그는 항상 애통함을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분개하였다. 그는 그 자매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믿는 자들의 구원을 믿는 것을 아셨다. 이러한 모순되는 감정들이, 그들이 무덤에 가까이 왔을 때 그가 왜 우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68:1.5 (1844.4)

3. 그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일을 정말로 망설였다. 그의 자매들은 형제가 실제로 필요하였지만, 예수는 그의 친구를 다시 불러내어 지독한 박해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을 슬퍼하였는데, 사람의 아들의 신성한 힘의 실증 중에서 가장 큰 것의 결과로 그 박해가 임할 것을 그가 잘 아셨기 때문이다.

168:1.6 (1844.5)

그리고 이제 우리는 흥미롭고 유익한 사실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가고자 한다: 이 이야기가 비록 인간의 관련사에서 겉보기에 자연적이고도 정상적인 사건으로 펼쳐지지만,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또 다른 조명을 가지고 있다. 메신저가 일요일에 예수께 가서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을 말씀 드렸고, 예수는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직접 베다니에 가서서는 자매들에게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고 물었다. 이 모든 것들이 주(主)께서 이 생명의 방식 이후에, 인간마음의 제한된 지식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었음을 나타내 보이고는 있지만, 또 그러셨다 할지라도, 우주의 기록들은 예수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사로 생각 조절자에 대한 행성에서의 무기한 억류에 대한 명령을 내렸다는 것과, 이 명령은 나사로가

숨을 거두기 정확히 15분전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168:1.7 (1844.6) 예수님의 신성한 마음이 나사로가 미쳐 죽기도 전에 죽음으로부터 그를 자신이 일으키리라는 것을 알았을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여기에 기록된 것들뿐이다.

168:1.8 (1844.7) 예수님의 적들 다수는 애정에 대한 그의 현시활동에 비웃으려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수근거렸다: “이 사람을 그토록 생각했다면, 베다니에 오기 전에 왜 그토록 오래 머물러 있었던 말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친구를 왜 구해주지 않았는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해주지도 못한다면, 갈릴리의 낚선 자들을 고쳐준 선함이 무슨 쓸모가 있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들과 업적들을 빈정거리고 비웃었다.

168:1.9 (1844.8) 그리하여, 이 날, 목요일 오후 두 시 반이 지났을 무렵에,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에 네바돈의 미가엘이 이 땅에서의 사명활동과 관련된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연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동안에 보여주신 신성한 힘들

중에서 가장 큰 현시활동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는데, 예수가 부활한 경우는 육신의 장막으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168:1.10 (1845.1) 나사로의 무덤 앞에 모여 있는 적은 무리들은 모든 종류의 천상의 존재들이 예수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의 지도에 의해, 무엇이 일어날지 가슴을 설레면서, 사랑하는 주권자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가브리엘의 지도에 따라 거대한 집단을 이루어 바로 옆에 현존해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168:1.11 (1845.2) 예수가 "돌을 치워라."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모여 있는 천상의 집단들은 나사로를 그의 필사 육신의 모습과 똑같이 부활시키는 드라마를 상연할 준비를 하였다. 그러한 부활 방식은 필사 창조체들이 모론시아 형태로 부활되는 일반적인 기법보다 훨씬 초월적인 실행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더욱 많은 천상의 개인성들과 훨씬 더 큰 우주 시설의 조직을 필요로 한다.

168:1.12 (1845.3)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려서 치우라는 예수의 명령을 듣고, 모순되는 여러 감정들로 가득하였다. 마리아는 나саро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기를

희망하였지만, 마르다는 어느 정도 동생과 같은 신앙을 가진 반면, 나사로가 혹시라도 나설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와 사도들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몹시 두려워하였다. 마르다는 말했다; “돌을 꼭 치워야만 됩니까? 형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으므로, 몸이 이미 썩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主)가 그 돌을 왜 치우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아마도 예수가 나사로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상상하였다. 그녀의 태도가 왔다 갔다 하였다. 그들이 돌을 굴려 치우기를 주저하자, 예수는, “이 병으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애당초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곳에 오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내가 도착한 후에도, 너희가 오직 믿기만 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무엇 때문에 의심을 하느냐? 언제나 되어야 믿고 순종하겠느냐?”

168:1.13 (1845.4) 예수가 말씀을 마치시자, 그의 사도들이 자진하는 이웃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무덤 입구로부터 돌을 밀어 굴려 내었다.

168:1.14 (1845.5) 유대인들은 대개, 죽음의 천사의 칼끝에 있는 독즙의 방울이 셋째 날이 끝남에 따라서 작용을 시작하기 때문에 넷째 날에는 충분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사람의 혼이 세 번째 날이 끝날 때까지 무덤 주위를 돌면서 죽은 육신을 다시 소생시키려고 애를 쓴다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그러한 혼이 네 번째 날 동이 트기 전에, 죽은 영들의 처소로 이미 가버렸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

168:1.15 (1845.6) 죽은 자 그리고 죽은 자의 영이 떠나는 것에 대한 이러한 믿음과 견해들은,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무엇이 발생했었는지를 듣게 될 훗날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것이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라고 선포했던 이가 개인적 작용으로, 실제로 그리고 진정으로 죽은 자를 일으킨 경우라고, 확신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제 2 장. 나사로의 부활

168:2.1 (1845.7) 무덤 앞에 서있던 45명쯤 되는 이들은, 세마포 형겔에 싸여서, 동굴 무덤의 오른쪽 밑에 있는 선반 위에 놓여 있는, 나사로의 형체를 어렵듯이 볼 수 있었다. 이

땅의 창조체들이 거의 숨을 죽인 채로 서 있는 동안, 천상의 존재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집단들이 그들의 지휘자인 가브리엘이 명령을 내렸을 때, 그 행동 개시 신호에 응답하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 위치하였다.

168:2.2 (1846.1) 예수는 눈을 들어 말씀했다; “아버지여, 제 요청을 들으시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항상 제 말을 들어주신 것을 알지만, 제가 당신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저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도, 당신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이 일속에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168:2.3 (1846.2) 관찰자 사람들은 꿈쩍도 안하고 있었지만, 거대한 천상의 집단들은 모두 창조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통합된 행동으로 부산하게 움직였다. 지상의 시간으로 꼭 12초 후에 나사로의 시체가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이윽고 누워 있던 돌 선반 끝에 몸을 일으켜 걸터앉았다. 그의 몸은 수의로 동여져 있었고, 얼굴은 형겅으로 덮여 있었다. 그가

그들 앞에서 일어서자—살아나서— 예수는,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해 주어라.”라고 말씀하였다.

^{168:2.4 (1846.3)} 사도들과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도망쳤다. 그들은 놀라고 겁에 질려서 창백한 얼굴이 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머물러 있었지만, 대부분은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168:2.5 (1846.4)} 나사로는 예수와 사도들에게 인사하였고, 수의를 왜 입고 있는지 그리고 정원에서 잠들어 있었는지를 물었다. 마르다가 나사로에게 그가 죽었었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설명하는 동안, 예수와 사도들은 한 쪽에 모여 있었다. 그녀는 그가 일요일에 죽었다가 목요일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설명해주어야만 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가 죽어서 잠에 빠져 있었던 동안에는 아무런 의식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168:2.6 (1846.5)} 나сар가 무덤에서 나오자, 이제 이 지역우주에서 자기 동료들의 우두머리가 된 예수님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는, 전에 나사로에게 있었다가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조절자에게 부활된 그의 혼과 마음속에 다시 들어가라고 명하였다.

168:2.7 (1846.6) 그러자 나사로는 자매들과 함께 예수께로 가서, 주(主)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리면서 하느님께 찬양을 드렸다. 예수는 나사로를 손으로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였다. “나의 아들이, 더 영화로운 형태로 부활될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들도 너에게 일어난 것과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말하였던 진리—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모두 집으로 가서 육신을 위해 음식을 들도록 하자.”

168:2.8 (1846.7) 그들이 집을 향하여 걸어가자, 가브리엘은 한 필사 창조체가 죽은 육신의 모습 그대로 부활되었던 유란시아에서 일어난 처음이자 마지막의 사례(事例)를 기록하면서, 잠시 쓰임을 받기 위해 모여 있었던 천상의 집단 무리들에게 해산을 명하였다.

168:2.9 (1846.8) 나사로는 무엇이 발생했었는지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였다. 자신이 아팠던 것은 기억할 수 있었지만, 잠들었다가 깨어난 것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전혀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덤에서 있었던 이 나흘 동안에

관하여 아무 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죽음으로 인하여 잠이 든 자에게는 시간이 실존하지 않는다.

168:2.10 (1846.9) 이 기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가슴이 더욱 완악해져서, 그를 더욱 배척하였다. 다음 날 정오가 되기 전에 이 이야기는 온 예루살렘에 두루 퍼졌다.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나사로를 만나 이야기하려고 베다니로 갔으며, 바리새인들이 놀라고 당황하여, 새로 발생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하여 서둘러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였다.

제 3 장. 산헤드린 회의

168:3.1 (1847.1)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는 이 사람의 증언이 왕국 복음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굳혀주기는 하였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영도자들과 통치자들의 태도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 그의 활동을 중지시키려는 그들의 결정을 촉진시켰다.

168:3.2 (1847.2) 다음 날, 금요일 한 시에, 산헤드린은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더 의논하기 위하여 모였다. 두 시간 이상의 토론과 신랄한 논쟁이 있는

후에, 예수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협박하였다고 선포할 것을 제안하면서, 판례를 무시하고 재판 없이 산헤드린으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도록 하여 예수를 즉시 죽여 버리자는 제안을 어떤 바리새인이 하였다.

168:3.3 (1847.3) 유대인 영도자들로 구성된 이 위엄 있는 모임은 예수를 체포하여 신성 모독죄로 그리고 유대인 종교법을 모독하였다는 다른 여러 가지 트집으로 재판하겠다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선포하였다. 그를 죽이겠다는 선포를 하게 된 일은 전에도 한 번 있었지만, 산헤드린이 재판하기 전에 죽이자는 공식 의견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않는었는데, 그것은 전대미문의 조치가 제안되자 14명의 산헤드린 회원들이 한꺼번에 사퇴를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사퇴서들은 두 주일 가까이 수리되지 않았지만, 그 날 산헤드린을 그만둔 이 14명의 무리들은 다시는 공회에 나가지 않았다. 후에 이 사퇴서들이 처리되었을 때, 다섯 명의 다른 회원들도 예수께 대하여 친근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믿어진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이 19명의 회원들을 축출함으로 인하여 산헤드린은 거의 전원일치에 가까운

합의로 예수를 재판하여 유죄(有罪) 평결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168:3.4 (1847.4)} 그 다음 주에는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이 산헤드린 앞에 출두하도록 소환되었다. 그들의 증언을 다 들었을 때, 나саро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하여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다. 산헤드린이 실질적으로는 나사로의 부활을 인정하였더라도, 이 일은 물론 예수가 행한 다른 모든 기적들도 귀신들의 영주의 힘 탓이며 예수도 그와 한 패인 것으로 결의하였다고 기록하였다.

^{168:3.5 (1847.5)} 기적을 일으키는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가 그 일을 즉시 멈추지 않으면 모든 대중들이 곧 그를 믿게 될 것이라고 유대인 영도자들은 믿었다; 더욱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믿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자들과의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68:3.6 (1847.6)} 대제사장 가야바가 여러 번 되풀이하여 말하였던, “공동체 전체가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라는 격언을 산헤드린 앞에서 발표하였던 것도 바로 이 회의에서였다.

168:3.7 (1847.7) 음울한 이 금요일 오후에, 예수가 비록 산헤드린의 행동에 관한 경고를 받아들였었지만,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으며, 친구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 벳바게에서 안식일을 지내면서 휴식을 취하였다. 예수와 사도들은 나사로의 집에서 미리 협의하였던 대로, 일요일 아침 일찍 모여서, 베다니에 사는 그 가족들을 떠나, 펠라에 있는 야영지로 돌아가기 위하여 출발하였다.

제 4 장. 기도에 대한 응답

168:4.1 (1848.1) 베다니에서 펠라로 돌아가는 길에, 사도들은 예수께 많은 질문을 하였으며, 주(主)는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질문에 자유롭게 답변을 하였다. 그러한 문제들은 사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었으므로 주(主)는 이 질문에 대하여 그들과 토론하기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베다니로부터 비밀리에 떠났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예수는 곧 닥치게 될 시험에 대비하도록 가르치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열 명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168:4.2 (1848.2) 사도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커다란 격동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자신들의 최근의 체험이 기도와 그 응답에 관련되어 있기에, 그것을 토론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모두 필라델피아에서 베다니 메신저에게 한 “이 병은 실제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예수의 분명한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보았다. 그리고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실재로 죽었었다. 그 날 하루 종일, 그들은 되풀이하여 기도의 응답에 관한 이 질문을 토의하였다.

168:4.3 (1848.3) 그들의 많은 질문들에 대한 예수의 대답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168:4.4 (1848.4) 1. 기도는 무한자에게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유한자 마음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만드는 것은 유한자의 지식, 지혜, 그리고 속성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응답도 무한자의 통찰력, 목적, 이상, 그리고 특권에 의해 조건이 갖추어질 수 밖에 없다. 기도와 그리고 그에 대한 충분한 영적 응답의 수신을 만들어가는 것 사이에서 물질적 현상들의 끊이지 않는 연속성은 결코 관찰될 수가 없는 것이다.

168:4.5 (1848.5)

2. 겉으로 보기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자연은 종종 더 나은 응답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해도 크게 늦어지는 어떤 선한 이유가 있다. 나사로의 병이 실제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고 예수가 말씀하였을 때, 그는 이미 죽은 지 11시간이 되었었다. 영적 세상에서의 우월한 관점이 더 나은 응답을 구상하고 있을 때, 즉 사람의 단순한 마음에서의 기도와 대조하여 그에 대응되는 사람의 영에서의 탄원에 부합되는 그러한 응답이 구상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진지한 기도도 응답이 거절되지 않는다.

168:4.6 (1848.6)

3. 시간의 기도들이, 영에 의하여 작성되고 신앙 안에서 표현될 때에는, 종종 너무도 광대하고 모든 것을-에워싸는 것이기에 그 사람들은 오직 영원에서만 응답될 수 있다; 유한자의 탄원이 때로는 무한자의 장악을 너무 많이 내포하기 때문에, 응답은 접수성을 위한 적절한 수용능력이 창조되기를 기다리도록 오랫동안 연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앙의 기도는 너무나 모든 것을-에워싸는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직 파라다이스에서만 그 응답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168:4.7 (1848.7)

4. 필사자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바로 그 기도하는 마음이 불멸의 상태를 달성하여야만 받아들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본성을 지닌 경우가 종종 있다. 물질 존재의 기도는 그러한 개별존재가 영적 차원으로 나아갔을 때에만 응답될 수 있는 때가 많다.

168:4.8 (1848.8)

5. 하느님을-아는 사람의 기도가 몰라서 왜곡되고 미신적 습관에 의해 변형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 응답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중재하는 영적 존재들이 그러한 기도를 너무 변형시키기 때문에, 그 응답이 도달하였을 때, 탄원하였던 사람은 그것이 자기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168:4.9 (1848.9)

6. 모든 참된 기도들은 영적 존재들에게 전달되어지며, 그러한 모든 탄원들은 영적 방법에서 반드시 응답되며, 그러한 응답들은 모두 영적 실체들에 있어야만 한다. 영적 존재들은 물질적 존재들의 영적 탄원들에 대하여 물질적인 응답을 줄 수 없다. 물질적 존재들은 “영으로 기도”할 때에만 효력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

168:4.10 (1849.1)

7. 그 어떤 기도도 영으로 탄생되고 신앙으로 양육된 것이 아니라면 응답에 대한 희망을 바랄 수 없다. 너희의 진지한 신앙은, 너희 신앙이 너희가 기도드리는데 그들 존재들을 항상 활동하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바로 그 최극 지혜와 신성한 사랑에 따라, 너희가 기도 이전에 미리 실질적으로 너희 기도를 듣는 이들에게 너희 탄원에 응답하는 충분한 권한을 주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168:4.11 (1849.2)

8.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요청할 때 항상 그렇게 할 권한이 있다; 부모는, 자신의 우월한 지혜가, 아이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연기되거나, 변형되거나, 분리되거나, 능가하거나, 또는 영적으로 상승하는 다음 단계까지 연기되도록 대답을 하라고 명령할 때, 미성숙한 자녀에게 항상 부모로서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

168:4.12 (1849.3)

9. 영적으로 갈망하는 기도를 망설이지 말라; 너의 탄원에 응답을 받아들일 것을 의심하지 마라; 이들 응답은 이 세계가 아니면 다른 세계들에서 실재적 조화우주 달성의 미래의 그러한 영적 차원에 대한 너희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저장될 것이다. 그 곳에서 너희는

예전에 일찍이 했었던 그러나 잘못된-시기였던 탄원을
네가 인지하고 그 응답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168:4.13 (1849.4) 10. 영-탄생된 모든 진정한 탄원들은 분명히
응답받는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보해 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많은 기도들과 탄원들에 대한 충만한 응답의
개인적 받아들임에서의 체험 안에서, 시간-공간 요소들을
계속적으로 알아차리고 있어야 한다.

제 5 장.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

168:5.1 (1849.5) 나사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주(週)에, 산헤드린이 그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는 경고를
받아들일 때까지,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과 호기심이 많은
자들에게 큰 흥미를 주는 중심지가 된 베다니 집에 머물러
있었다. 유대인 관리들은 예수의 가르침이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기로 결의하고, 예수가 행한 기적들 중에서 가장
정점(頂点)이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나사로를
살려두어서, 예수가 그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증거 하도록 한다면, 예수를 죽여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그 판단은 잘 한 것이었다. 나사로는 이미 그들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168:5.2 (1849.6)} 그리하여 나사로는 자매들을 베다니에 남겨두고 서둘러 떠났으며, 필라델피아에 도착할 때까지 충분히 쉬지도 못하면서 여리고를 지나 요단을 건너 피신을 하였다. 나사로는 아브너를 잘 알고 있었으며, 이곳에 있음으로써 사악한 산헤드린의 살인 음모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168:5.3 (1849.7)} 마르다와 마리아는 베다니에 있는 땅들을 처분한 후 곧, 페레아에 있는 형제와 합류하였다. 한편, 나사로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재정 담당자가 되었었다. 그는 바울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의 논쟁에서 아브너를 강력하게 지지하였으며, 그가 젊었을 때 베다니에서 그를 죽게 하였던 똑같은 병으로 마침내 67세의 나이로 죽었다.

제 169 편 펠라에서의 마지막 가르침

^{169:0.1 (1850.1)} 예수와 열 명의 사도들은 3월 6일 월요일 늦은 저녁에, 펠라 야영지에 도착하였다. 이것은 예수가 그곳에 머무신 마지막 주가 되었으며, 군중들을 가르치고

사도들에게 설명하는 일에 매우 활발하였다. 매일 오후
무리들에게 설교하였고, 매일 밤에는 야영지에 머물고
있는 사도들과 특정한 상급 제자들을 위한 질문에
답변하였다.

169:0.2 (1850.2)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소식이 주(主)께서
도착하기 이틀 전에 그 야영지에도 전해졌으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였다. 5,000명을 먹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의 상상력을 이처럼 자극하는 어떤 것도 발생된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 때 예수가 이 짧은 한 주 동안에
펠라에서의 가르치기로 계획하였던, 왕국의 대중적
사명활동의 두 번째 위상이 최고 정점에 달하였으며, 그
후에는 페레아의 남쪽으로 내려가셔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비참한 체험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다.

169:0.3 (1850.3) 바리새인들과 우두머리 사제들은 그들의 고소
내용들을 공식화하고 고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主)의
가르침들을 배척하였다:

169:0.4 (1850.4) 1. 그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이다; 그는 악인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169:0.5 (1850.5) 2. 그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이다; 하느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고 하느님과 같다고 생각한다.

169:0.6 (1850.6) 3. 그는 법을 파괴하는 자이다. 그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며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율법을 조롱하였다.

169:0.7 (1850.7) 4. 그는 귀신들과 결탁하고 있다. 귀신들의 영주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기적을 행하고 그럴듯한 이적들을 행한다.

제 1 장.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

169:1.1 (1850.8) 목요일 오후에 예수는 군중들에게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 말씀하였다. 주(主)는 이 설교 속에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돈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 후에, 그가 좋아하는 돌아온 탕자 아들에 관한 비유를 더하였다. 예수는 말씀했다:

169:1.2 (1850.9) “사무엘로부터 요한에 이르는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하느님을 찾으라고—진리를 탐구하라고—훈계하여 왔다. 그들은 항상 ‘만날 수 있는 동안에 그 주님을 찾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가르침을

가슴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느님을 찾으려고 하는 동안 하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왔다.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양을 발견하자, 그것을 어깨에 메어 친절하게 데리고 돌아와서 양 떼 속으로 다시 넣어주었다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해 주었다. 그리고 잃었던 양이 무리 속으로 들어가자, 그 선한 목자가 자기 친구들을 부르면서, 잃었던 양을 발견한 것에 대하여 함께 기쁨을 향유하자고 그들을 초대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다시 말하겠는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아흔 아홉 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을 더욱 기뻐한다. 혼들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관심을 더욱 깊게 해줄 뿐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분부대로 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며, 사람의 아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이 사실이다.

169:1.3 (1851.1) "회개한 후에야, 그리고 희생물과 참회의 행위의 결과로 신성한 용납이 온다고 너희가 배워왔지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은, 아버지는 너희가 회개하기도

전에 너희를 용납하며, 너희를 찾아서 양 무리에게로, 영적 진보가 있는 아들관계의 왕국으로 기뻐하면서 데리고 오도록, 아들과 그의 연관-동료들을 보내셨다는 것이다. 너희는 모두 길을 잃은 양과 같으며, 길을 잃은 그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169:1.4 (1851.2) “그리고 너희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목걸이를 만들려고 은으로 된 열 개의 동전들을 감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려서, 등을 밝히고 집안을 열심히 쓸면서 잃어버린 그 은 동전이 발견될 때까지 쉬지 않고 찾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해야만 한다. 그리고 잃었던 그 동전을 발견하자마자,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내가 잃었던 동전을 찾았으니 나와함께 기쁨을 향유하자.’고 말하였다. 내가 다시 말하겠는데, 한 죄인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양 떼로 돌아오면 하늘의 천사들의 현존 안에서 항상 기쁨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나서신다는 것을 너희의 가슴속에 새겨두기 위해서이며, 이렇게 찾아 나설 때, 구원을 필요로 하며 서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한 우리의 부지런한 노력에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은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을 찾기 위하여 광야에 나가며, 집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도 한다. 그 양은 부지불식간에 길을 잃게 된 것이다; 그 동전은 시간이라는 먼지로 덮이고, 사람들의 일들로 누적되어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169:1.5 (1851.3) “이제 너희들에게 어느 부자 농부의 철없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는데, 그 아들은 고의로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 다른 나라 땅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양들은 아무 의도 없이 방황하게 되었지만, 이 젊은이는 계획적으로 자기 집을 떠났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기 바란다. 그 이야기는 이렇다:

169:1.6 (1851.4)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동생은 근심 걱정이 없고 무책임(無責任)하여 항상 즐거운 시간만을 찾으며 책임은 회피하였으나, 반면에 그의 형은 진지하고 침착하며 열심히 일하고 책임을 기꺼이 지는 사람이었다. 이윽고 이 두 형제들의 사이가 나빠졌으며; 둘이 항상 다투고 언쟁을 하였다. 동생은 명랑하고 활발하였지만, 게으르고 신뢰성이 없었다; 형은 침착하고

부지런하였지만, 반면에 자아-중심적이고 무뚝뚝하며 교만하였다. 동생은 놀기는 좋아하였지만 일하는 것은 피하였다; 형은 일에 열심이었지만 잘 놀지 않았다. 두 형제의 불화가 너무 심해지자, 동생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저에게 오게 될 당신의 소유물들 중 3분의 1을 저에게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요청을 들은 아버지는 작은아들이 집에 있으면 형 때문에 얼마나 불만스러워 하는지를 알고, 자기 재산(財産)을 떼어서, 작은아들의 몫을 주었다.

169:1.7 (1851.5) “그 젊은이는 몇 주 후에 자기 돈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지만, 재미있으면서도 돈을 벌만한 일을 찾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곧 모든 유산을 탕진하게 되었다. 재산이 모두 떨어졌을 때, 그 지방에 오랫동안의 기근이 닥쳐왔으며, 곤궁한 신세가 되었다. 그리하여 배고픔을 참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자, 그 지방에 사는 사람에게 고용이 되었는데, 그를 돼지 키우는 곳으로 보냈다. 그 젊은이는 돼지들이 먹는 옥수수 껍질로 배를 채우지 않을 수 없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169:1.8 (1852.1) “어느 날, 매우 배가 고팠을 때, 허망한 꿈에서 깨어나 말했다; ‘내 아버지에게 고용된 많은 하인들에게는 배부르게 먹고 남을 만큼 빵이 풍성한데, 나는 이곳 이국땅에서 돼지나 키우다가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다만 저를 고용된 하인들 중의 하나처럼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젊은이는 가슴의 결정이 되자,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향하였다.

169:1.9 (1852.2) “이 때 이 아버지는 아들로 인하여 몹시 슬퍼하였다; 그 명랑하고 철없는 아들을 무척 보고 싶어 하였다. 이 아버지는 작은아들을 사랑하였으며 그가 돌아오기만을 항상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던 날, 그가 아직도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사랑 가득한 연민으로 감격하여, 그를 만나려고 뛰어 나갔으며, 자애롭게 환영하면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인사가 끝나자, 그 아들은 눈물을 흘리는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당신 앞에 죄를 지었으니; 저는 더 이상 아들이라 불려 질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지만—그 아들은 고백을 다

마치지도 못하였는데, 왜냐하면 이때에 뛰어 달려오는
너무도 기뻐하는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내가 보관해 둔
가장 좋은 옷을 빨리 가져와서 그에게 입히고,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를 그의 손에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발을
가져오라'고 명하였기 때문이다.

169:1.10 (1852.3) 그러고 나서, 행복한 그 아버지는 발이 부르르고
기진맥진한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하인들을 불러
말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져오고 흥겹게 놀도록 하자.' 그들은 모두 그
아버지에게 모여 그의 아들이 돌아온 기쁨을 향유하였다.

169:1.11 (1852.4) "이 무렵, 그들이 축하하고 있는 동안, 큰아들이
들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집에 가까이 오면서
음악 소리와 춤을 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뒷문으로 가서,
하인들 중 하나를 불러내어 이 모든 잔치가 왜 벌어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하인이, '오래도록 잃었던 당신의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으며, 당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자기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기쁨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들어오셔서 동생을 환영하고 당신 그를 다시 아버지 집에 받아들이십시오.’

169:1.12 (1852.5) “그러나 그 형은 이 말을 듣자, 너무도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동생을 환영한 것에 대하여 큰아들이 분개하였다는 말을 들은 그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그에게 간청하였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설득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일하였고,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었는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삼 년 동안 꼬박 아버지 곁에서 보살펴 드렸는데, 저의 충성스러운 봉사에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버지의 소유를 창기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자, 서둘러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고 그를 즐겁게 만드셨습니다.’

169:1.13 (1852.6) “이 아버지는 자기 두 아들을 모두 사랑하였기 때문에, 큰아들을 설득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내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너는 언제라도 새끼 양을 잡아서 네 친구들과

흥겹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네 동생이 돌아왔으니, 나와 함께 들어가서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마땅하다. 나의 아들이 네 동생을 잃었다가 찾은 것과; 살아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을 생각해 보아라!”

169:1.14 (1853.1) 이 비유는 예수가 청중들의 가슴속에,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오려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들여려는 것이 아버지의 기꺼운 마음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하여 제시한 모든 비유들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효력적인 것들 중의 하나였다.

169:1.15 (1853.2) 예수는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을 동시에 말씀하기를 대단히 좋아하였다. 잃어버린 양 이야기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생명의 길에서 멀어졌을 때, 아버지는 그러한 잃어버린 자들을 잊지 않으시며, 그 양떼의 참 목자인 자기 아들과 함께 나가셔서, 잃은 양을 찾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말씀하였다. 그리고 집안에서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는, 혼동되거나, 좌절당하거나, 또는 일생의 물질적인 염려들과 축재(蓄財)로 인하여 영적으로 눈이 먼 모든 사람들을 찾으시는 신성한 노력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잃어버린 아들, 방탕한 자를 환영하는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한 것은, 잃어버렸던 아들을 아버지의 집과 가슴속으로 얼마나 완벽하게 복귀시키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169:1.16 (1853.3) 예수는 가르치시는 동안 이 방탕한 아들 이야기를 얼마나 여러 번 반복하였는지 모른다. 예수는 이 비유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아버지의 사랑과 사람의 이웃에 대한 정의(正義)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좋아하였다.

제 2 장. 영리한 청지기의 비유

169:2.1 (1853.4) 어느 날 저녁, 열심당원 시몬은 예수의 말씀들 중의 하나에 대하여 거론하며 말했다: “주(主)여,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숨씨 있게 친구들을 만들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자녀들이 자신들의 세대 안에 있는 왕국의 자녀보다 더 현명하다고 하신 것은 오늘 무엇을 의미하신 것입니까?” 예수는 대답하였다:

169:2.2 (1853.5) “너희들 중에 일부는 너희가 왕국에 들어가기 전, 너희 사업상의 연관-동료들과의 거래에서 매우 영민하였다. 만일 너희가 부당했고 그리고 가끔

불공평했다 해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안전에 오로지 눈을 돌리며 너희 사업을 거래했다는 것에서 신중하고도 통찰력이 있었다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현재의 기쁨을 마련하듯이 한편으로 장차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에서의 너희 즐거움을 또한 확보하면서, 왕국 안에서 너희 삶을 그렇게 정하여야만 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자아에 대한 봉사 안에서, 네 자신을 위해 이익을 만드는 일에 그토록 열심이었다면, 너희가 이제 사람의 형제신분에서의 하인으로서 그리고 하느님의 청지기이면서도, 어째서 너희는 왕국을 위하여 혼을 얻는 것에서는 열심을 보이지 않느냐?

169:2.3 (1853.6) “너희들 모두는 어떤 영리하지만 부당한 청지기를 둔 부자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배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청지기는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기 주인의 손님을 억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인의 자금도 직접 낭비하고 탕진하였다. 이 사실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리자, 그는 청지기를 앞에 불러 이들 소문의 의미를 물으면서 즉시 청지기직의 회계장부를 제출하고

그의 주인의 관련사들을 다른 이에게 넘겨줄 준비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169:2.4 (1853.7) “그러자 이 불충한 청지기는 속으로 말했다; ‘내가 청지기직을 잃게 되었으니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구걸하자니 부끄럽다. 내가 이 청지기직을 그만두었을 때, 내 주인과 거래했던 모든 사람의 집에서 내가 환영받을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겠구나.’ 그리고 나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씩 부르면서, 첫 번째 사람에게, ‘나의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느냐?’고 물었다. 그는 ‘기름 일 백 되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청지기는 말하기를, ‘기록된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와서 오십이라고 고쳐라.’ 또 다른 빚진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얼마나 빚을 졌느냐?’ 그는 ‘밀 일 백 가마입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네 증서를 가져다가 팔십이라고 써라.’ 그리고 다른 많은 빚진 자들에게도 이렇게 하였다. 정직하지 않은 이 청지기는 자기가 청지기직에서 쫓겨난 이후에 자신을 위한 친구들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썼다. 그의 주님이자 주인조차도, 나중에 이것을 알고는, 그의 불충한 청지기가 앞날의 빈곤과 역경에 대비한

태도에서는 적어도 총명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69:2.5 (1854.1) “이 세상의 자녀들은 때때로, 미래를 위한 자신들의 준비에서, 이런 식으로, 빛의 자녀들이 하는 것보다 더욱 지혜로움을 보여준다.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너희들에게 말하겠는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드는 사람들에게서 교훈을 얻으라, 그리고 너희도 마찬가지로 너희의 삶을 그렇게 수행하여,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시들 때, 너희가 영원한 거처에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정의의 세력들과 영원한 친구관계를 맺어야만 한다.

169:2.6 (1854.2) “내가 단언하겠는데, 적은 것에 신실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신실할 것이며, 적은 것에 불의한자는 많은 것에도 불의할 것이다. 너희가 만일 이 세상의 관련사에서 선견과 고결한-순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너희가 하늘왕국의 참된 재산에 대한 청지기직을 맡게 될 때, 어떻게 너희가 신실하고도 신중하다고 여겨지리라고 바랄 수가 있겠느냐? 만일 너희가 선한 청지기도 아니고 신실한 은행가도 아니라면,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것에

신실한 적도 없었다면, 어느 누가 너희 이름으로 큰 보물을
너희에게 줄만큼 그토록 바보이겠느냐?

169:2.7 (1854.3) “내가 다시 분명히 말하는데,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 한다; 그는 하나를 미워하고 다른 하나를
좋아할 것이고, 혹은 하나에 매달리고 반면에 다른 하나를
몹시 싫어할 것이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169:2.8 (1854.4)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재산 획득에 탐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웃고 코웃음 치기 시작했다. 이들 쌀쌀맞은 청중들은
예수를 무익한 논쟁에 말려들게 하려고 애썼지만, 예수는
자신의 적들과 논쟁하기 거절하였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말다툼을 벌이자, 그들의 큰 소리가 야영하는
많은 군중을 끌어 모았다; 그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자,
예수는 물러나, 밤을 지내려고 자기 천막으로 가셨다.

제 3 장. 부자와 거지

169:3.1 (1854.5) 모임이 너무 시끄러워지자, 시몬 베드로가
일어서서, 지휘하며 말했다; “형제들아, 너희들끼리
논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主)는 말씀하였고, 너희는

그의 말씀을 잘 숙고해 보아라. 오늘 너희들에게 선포한 것은 전혀 새로운 교리가 아니다. 부자와 거지에 대한 나지르인들의 우화를 듣지 못하였느냐? 재물을 사랑하고 정직하지 못한 재물을 탐내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이 비유를 세례자 요한이 외치는 것을 우리들 중에서도 들은 사람들이 있다. 오래 된 이 비유는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하늘의 왕국의 새로운 빛을 깨달을 때까지 너희는 모두 이 교훈을 잘 지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세례자 요한이 말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169:3.2 (1854.6) “디버스라는 이름의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과 고운 세마포 옷을 입고, 매일같이 화려하게 꾸미며 환락 가운데 살았다. 그리고 거기에 나사로라 하는 부스럼투성이의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이 부자의 출입문 곁에 거하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다; 심지어는 개들도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았다. 이윽고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이 그를 데려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게 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이 부자도 죽어서 화려하고 호화롭게 매장되었다. 부자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죽음의 나라에서 깨어났으며, 고통을 당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자 디버스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형별로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나의 아들이아,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들을 즐겼지만, 나사로는 악한 고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바뀌어서, 너는 고통을 받으나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다. 그밖에도, 너와 우리들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서 우리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네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다.' 그러자 디버스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저에게 형제가 다섯이 있으니, 제발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어 증거를 주셔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다; '나의 아들이아,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러자 디버스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죽었던 자가 그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때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이 모세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아니한다면,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169:3.3 (1855.1)} 베드로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나지르인 형제들의 이 우화를 마쳤을 때, 군중들이 조용해졌으므로, 안드레가 일어나 그들을 잠자리에 들도록 해산시켰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디버스와 나사로의 우화에 관하여 예수께 종종 질문을 하였지만, 그것에 대하여 결코 언급하지 않았다.

제 4 장. 아버지와 그의 왕국

^{169:4.1 (1855.2)} 예수는 그들이 하느님의 왕국 확립을 선포하는 동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들에게 설명하는데 항상 힘들어하였다. 예수가 이 땅에 사시면서 육신 가운데에서 가르치실 때, 유란시아의 사람들은 대개 국가와 정부를 움직이는 왕 또는 황제에 익숙해 있었으며, 유대인들은 다가올 하느님의 왕국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주(主)는 하늘의 왕국을 사람의 영적 형제신분으로 나타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 형제신분의 영적 우두머리로 나타내 보고자 하는 최선의 생각을 하였다. 예수는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사도들과 가깝게

이야기할 때에는 언제나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또는 그들의 형으로 언급하였다.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인류의 하인으로, 그리고 왕국 복음의 메신저로 묘사했다.

169:4.2 (1855.3) 예수는 사도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개인성과 속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친 적이 없었다. 그는 결코 사람들에게 자기 아버지를 믿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들이 믿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예수는 아버지의 실체를 증명하는 논리를 내어 놓음으로서 품위를 떨어트린 적이 없었다. 아버지에 관한 그의 가르침들은 모두 그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 아들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것; 아버지도 아들처럼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것; 아들만이 실제로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아들이 자기 자신을 계시할 그러한 자들만이 아버지를 안다는 것; 아들을 아는 자는 또한 아버지도 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의 병합된 본성들을 나타내고 그들의 공동 작업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데에 중점을 두셨다.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여인에게 “하느님은 영이시다.”라고 선포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 다르게 선언한 적이 없었다.

169:4.3 (1856.1) 너희는 예수의 가르침으로써가 아니라, 그의 일생에서의 신성을 관찰함으로써, 하느님에 관하여 배우는 것이다. 주(主)의 일생으로부터 너희는 각자, 영적이며 신성한 실체, 실제이며 영원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너희의 수용능력의 척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하느님의 개념을 동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나사렛 예수의 인간 일생이 겪은 유한한 체험의 시간-공간 개인성 안에서 무한자가 초점화를 이룬 것과 같은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한자가 무한자를 이해할 희망은 결코 바랄 수 없다.

169:4.4 (1856.2) 하느님은 오직 체험에서의 실체로써만 알려지실 수 있다는 것과; 마음에서의 가르침으로는 결코 그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는 잘 아셨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그들이 충분히 하느님을 납득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아는 바로 그 만큼, 그를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예수가 말한 것을 아는 것으로써가 아니라, 예수가 무엇이었는지를 앎으로써, 너희가 하느님을 알 수 있다. 예수는 하느님의 계시였다.

169:4.5 (1856.3) 예수가 신(神)을 언급할 때, 히브리 경전을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느님과 아버지라는 오직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주(主)가 자기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부르실 때에는 보통 복수의 하느님(삼위일체)을 표시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유대인의 종족적 하느님에 대한 진보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야훼라는 단어는 아니었다.

169:4.6 (1856.4) 예수는 아버지를 왕으로 부른 적이 결코 없었으며, 회복되는 왕국에 대한 유대인들의 희망과 그리고 다가오는 왕국에 대한 요한의 선포로 말미암아, 자신이 제시하는 영적 형제신분을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 필요가 그에게 생기게 된 것을 무척 유감으로 생각하였다. 한 번의 예외—"하느님은 영이시다"라는 선포—를 제외하고는, 파라다이스의 첫째근원이며 중심과 자기 자신의 개인적 관계를 서술해야하는 경우가 아닌 다른 어떤 방법에서도 신(神)에 대하여 언급한 적은 결코 없었다.

169:4.7 (1856.5) 예수는 신(神)에 대한 관념을 정의하기위하여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아버지라는 단어는

하느님을 아는 체험을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느님을 가리키기 위하여 아버지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가능한 가장 큰 의미로 납득되어야만 한다. 하느님이라는 단어는 정의(定意)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아버지의 무한한 개념을 상징하며, 한편으로는 아버지라는 용어는 부분적인 정의(定意)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가 필사자 실존의 과정에서 사람과 연관되는바와 같이, 그렇게 신성한 아버지의 인간 개념을 대표하는 데 사용해도 될 것이다.

169:4.8 (1856.6) 유대인들에게, 엘로힘은 하느님들의 하느님이었으며, 한편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었다. 예수는 엘로힘의 개념을 받아들였고 존재들의 이 최극 무리를 하느님으로 불렀다. 종족 신(神)인 야훼의 개념 대신에 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람의 범-세계적 형제신분 관념을 소개하였다. 그는 신(神)화한 종족적 아버지인 야훼 개념을, 사람의 모든 자녀의 아버지의 관념, 개별 신자의 신성한 아버지로 들어 올리셨다. 그리고 그는 나아가서 이 우주들의 하느님 그리고 모든 인류의 이 아버지는 하나였고 그리고 동일한 파라다이스 신(神)이라고 가르쳤다.

169:4.9 (1856.7) 예수는 결코 엘로힘(하느님)이 육신을 입고
현시활동된 것이라 주장한 적이 없다. 그는 그가 세계들을
향한 엘로힘(하느님)의 계시라고 선포하지 않았다. 그를
본 사람은 엘로힘(하느님)을 본 것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았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아버지에 대한 육체 속에서의
계시라고 선언하고, 그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그는 신성한 아들로써 오직 아버지만을
대표한다고 단언하였다.

169:4.10 (1857.1) 그는 참으로 그와 같은 엘로힘 하느님의
아들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필사 육체의 모습으로,
하느님의 필사자 아들들에게 주는 그러한 계시가, 필사
사람들에게 이해될지도 모를 한도만큼 그 안에서, 자신의
일생의 계시를 자신의 아버지의 성격을 묘사하는데
국한하기로 하였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다른
개인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육신화한 아들, 나사렛 예수의
일생 속에서 개인적 모습으로 그려져 계시되었던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가르침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169:4.11 (1857.2) 예수가 비록 자신의 이 땅에서의 일생 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참된 본성을 나타내셨다 할지라도,

그에 관하여 가르친 것은 거의 없었다. 사실, 오직 두 가지만을 가르치셨는데: 자신 속에 계신 하느님은 영이시라는 것과, 창조체들과의 모든 관계성에서 아버지이시라는 것이었다. 이 날 저녁, "나는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왔으며; 나는 다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예수는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선포를 하였다.

169:4.12 (1857.3) 그러나 명심하라! 예수는 "나의 음성을 들은 자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다."라고 말씀한 적이 전혀 없으시지만, 반면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였다.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하느님을 안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본 것 그 자체가 혼에게 계시된 아버지를 체험한 것이다. 우주들의 하느님은 멀리 퍼져 나가는 창조를 지배하지만, 너희 마음속에 거하도록 자신의 영을 보내시는 분은 아버지이시다.

169:4.13 (1857.4) 예수는 물질적인 창조체에게 보일 수가 없는 그분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인간 모습에서의 영적 렌즈이다. 그는 천상의 집단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없는 무한한 속성들의 존재를 육신을 입고 너희에게 알려주는

너희의 형님이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믿는 자
개별존재의 개인적 체험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영이신
하느님은 영적 체험으로써만 알려질 수 있다. 하느님은
영적 세계의 신성한 아들에 의해서, 오직 아버지로서만,
물질적 세계들의 유한한 아들들에게 알려지실 수 있다.
너희는 영원자를 아버지로서 알 수 있다; 너희는 우주들의
하느님, 모든 실존들의 무한한 창조자로서 그에게 경배를
드릴 수 있다.

제 170 편 하늘의 왕국

170:0.1 (1858.1) 3월 11일 토요일 오후, 예수는 펠라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하였다. 이 설교는 그의 대중 사명활동 중에서
특기할만한 것이었는데, 하늘의 왕국에 관한
전체적이면서도 완벽한 논의를 내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증여 임무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하느님의 왕국”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들의
의미와 의의(意義)에 관하여 제자들은 물론 사도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혼돈을 잘 알아차리고 계셨다.
하늘의 왕국이라는 그 단어가 땅의 왕국들과 현세적인
정부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로부터 충분히 분리되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였다. 현세적인 왕의 관념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에 한 세대 동안에 그것을 몰아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오랫동안 키워온 왕국의 개념을 처음에는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않았다.

170:0.2 (1858.2) 이 안식일 오후에 주(主)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가르침을 명백하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문제를 다루시면서, 사용되고 있는 그 말의 다른 여러 관념들을 분명하게 하였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전에 예수가 하였던 많은 말씀들을 첨부함으로써, 그리고 이 날 저녁에 토론하는 동안 오직 사도들에게만 주었던 주의사항들을 삽입함으로써 그 설교를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후기 그리스도교 교회와 관련되는, 그 후에 일어난 왕국 관념의 외적 현상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려고 한다.

제 1 장. 하늘의 왕국의 개념들

170:1.1 (1858.3) 예수의 설교를 상술(詳述)함에 있어서, 히브리 경전에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원적(二元的)인 개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선지자들은 하느님의 왕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70:1.2 (1858.4) 1. 현재의 실체이다; 그리고 그렇게 있다.

170:1.3 (1858.5) 2. 미래의 희망이다—메시아가 출현하면서 그 왕국이 충만함 속에서 실현되어질 시기. 이것이 세례자 요한이 가르쳤던 왕국 개념이다.

170:1.4 (1858.6) 아주 처음부터 예수와 사도들은 이들 개념의 둘 모두를 가르쳤다.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왕국에 대한 또 다른 두 관념들이 있다:

170:1.5 (1858.7) 3. 초자연적으로 기원되고 기적적으로 세워진 범-세계적 초월적 왕국의 훗날 유대인 개념.

170:1.6 (1858.8) 4. 세상이 끝날 때 선이 악을 이기고 성취하는 신성한 왕국이 설립될 것을 묘사하고 있는 페르시아인 가르침들.

170:1.7 (1858.9) 예수가 이 땅에 출현하기 직전에, 유대인들은 왕국에 대한 이 관념들을 뒤섞어 버리고 혼돈을 일으켜서, 유대인이 승리하는 시대, 하느님의 권세가 온 땅을 지배하는 영원한 시대, 새로운 세상, 모든 인류가 야훼를 경배하는 시대를 설립하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종말론적 개념에 사로잡혔다. 예수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 개념들의 이용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생생하고
절정에 도달한 유대인 그리고 페르시아 종교의 유산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170:1.8 (1859.1) 그리스도교 시대의 여러 세기들을 거쳐 오면서,
잘 납득되기도 하고 잘못 납득되기도 한 하늘의 왕국은
관념에서의 독특한 네 가지의 집단을 포용한다:

170:1.9 (1859.2) 1. 유대인들의 개념.

170:1.10 (1859.3) 2. 페르시아인 들의 개념

170:1.11 (1859.4) 3. 예수의 개인적-체험 개념—"너희 안에 있는
하늘의 왕국"

170:1.12 (1859.5) 4. 그리스도교 창시자들과 선포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하여 찾아낸, 합성되고 혼동된
개념들.

170:1.13 (1859.6) 예수는 대중을 가르치실 때에는 "왕국"에 대해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개념들을 제시한 듯
하였지만, 사도들에게는 항상, 왕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리고 땅에 있는 그의 동료들과 관계에서의
사람의 개인적 체험을 포용하는 것으로서 가르쳤다.

왕국을 언급할 때, 그의 마지막 말씀은 항상 “왕국은 너희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었다.

170:1.14 (1859.7)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하여 여러 세기 동안 혼동을 일으켜온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들에 기인한다:

170:1.15 (1859.8) 1. “왕국”의 관념을 예수와 그의 사도들에 의하여 다양한 진보적 과정을 거쳐 온 것으로 관찰함으로써 생긴 혼동.

170:1.16 (1859.9) 2. 초기 그리스도교가 유대인의 토양으로부터 이방인의 토양으로 이주되는 과정과 관련하여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혼동.

170:1.17 (1859.10) 3. 그리스도교가 예수의 보다 성숙된 개인에 대한 중심 관념에 관하여 형태화된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는 사실에 내재되어 있었던 혼동; 왕국 복음이 점점 더 그에 관한 종교로 바뀌어 갔다.

제 2 장. 왕국에 대한 예수의 개념

170:2.1 (1859.11) 주(主)는 하늘의 왕국이,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의 진리와 그에 관계되어진 사람의 형제신분의 사실에 대한

이원적(二元的) 개념으로 시작되고, 그 개념 안에 중심을 이루면서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다.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박 받아온 동물적 공포로부터 해방할 것이고, 그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영적 자유를 누리는 새 생명의 자질이 부여되면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줄 것이라고 예수는 선포하였다:

170:2.2 (1859.12) 1. 새로운 용기와 증강된 영적 힘을 소유하는 것. 왕국 복음은 사람을 자유에 돌려 놓았고, 그가 감히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170:2.3 (1859.13) 2.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새로운 확신과 참된 위안의 메시지를 전했다.

170:2.4 (1859.14) 3. 복음은 그 자체가 도덕적 가치의 새로운 표준이었으며, 인간 행위를 재는 새로운 윤리적 잣대였다. 그것은 인간 사회의 결과적으로 생기는 새로운 질서의 이상을 묘사했다.

170:2.5 (1859.15) 4. 그것은 물질적인 것과 비교된 영적인 것의 선재적-탁월성을 가르쳤다; 영적 실체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초인간적 이상들을 드높였다.

170:2.6 (1860.1) 5. 이 새로운 복음은 영적 달성을 삶의 참된 목적으로 높이 올렸다. 인간의 일생은 도덕적 가치와 신성한 존엄성의 새로운 자질을 부여받았다.

170:2.7 (1860.2) 6. 예수는 영원한 실체란 정의로운 땅에서의 분투의 결과(보상)라고 가르치셨다. 땅에서 사람의 필사자로서의 일시적 거주가, 고귀한 운명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귀결되면서, 새로운 의미들을 획득하였다.

170:2.8 (1860.3) 7. 인간의 구원이 하느님의 구원받은 아들들의 끝없는 봉사의 미래 운명 안에서 충족되고 실현되어질, 멀리-미치는 신성한 목적에 대한 계시임을 새로운 복음이 확언하였다.

170:2.9 (1860.4) 이들 가르침은 예수가 가르치셨던 왕국에 대한, 확대된 관념을 뒤덮는다. 이 위대한 개념은 세례자 요한의 초보적이면서 혼동된 왕국 가르침들 안에는 거의 포용되지 않았다.

170:2.10 (1860.5) 사도들은 왕국에 대한 주(主)의 말씀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그 후의 왜곡들은, 신약 성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는 그 때 잠시 동안만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과; 그가 곧 돌아와서 힘과 영광 속에서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는 그 신앙—그가 육신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이 집착하였던 바로 그러한 관념—에 의해, 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의 개념이 얼룩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이 이 세상에 돌아오신다는 관념을 왕국의 설립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예수의 가르침과 “새 시대”가 일치되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채로 여러 세기가 지나갔다.

170:2.11 (1860.6) 이 설교 안에 체현된 큰 노력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개념을,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관념에 대한 이상(理想)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였다. 주(主)는 따르는 자들에게 “당신의 왕국이 임하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오랫동안 가르치셨다; 이 때 그는 그들에게 보다 실천적인 동의어인, 하느님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대신에 하느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설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였다.

170:2.12 (1860.7) 예수는 왕국, 왕, 그리고 백성들이라는 개념 대신에, 하늘에 있는 가족,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쁘게 봉사하기에 바쁘며 아버지 하느님께 장엄하면서도 지능적으로 경배 드리기에 바쁜 자유롭게 된 하느님의 아들들의 관념을 몹시 원하였다.

170:2.13 (1860.8) 사도들은 이때까지도 왕국에 대하여 중복된 관점을 습득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그것을 여겼다:

170:2.14 (1860.9) 1. 개인적 체험이자 그 다음에 참된 신자의 가슴속에서 제시되는 그러한 어떤 사건이라는 관점, 그리고

170:2.15 (1860.10) 2. 인종적 혹은 세상적 현상에서의 어떤 문제가 아닐까하는 관점; 기대할만한 어떤 것이 있는 것, 미래에 있는 왕국이라는 관점.

170:2.16 (1860.11) 그들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왕국이 다가오는 것을, 마치 반죽 속의 누룩처럼 혹은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같은, 그러한 단계적인 발달로 보고 기대하였다. 왕국이 다가오는 것은 인종적 감각이나 혹은 세계적 감각으로 갑작스럽고도 동시에 극적인 장관일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다. 예수는 하늘의 왕국이 보다 높은 영적 삶의 본질특성을 실현하는. 그들의 개인적 체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면서 결코 지친 적이 없었다; 영적으로 체험하는 이 실체들은 신성한 확실성과 영원한 장엄의 새롭고도 보다 높은 차원들로, 진보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면서 결코 지친 적이 없었다.

170:2.17 (1860.12) 이 날 오후에 주(主)는 왕국의 이중적인 본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현상을 묘사하심으로써 명백하게 가르치셨다:

170:2.18 (1860.13) “첫째, 이 세상에서의 하느님의 왕국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숭고한 욕구, 사람이 진보된 윤리적 도덕적 행위성의 좋은 열매를 맺는 사심-없는 사랑이다.

170:2.19 (1861.1) “둘째, 하늘에서의 하느님의 왕국은, 믿는 필사자들의 목표인데,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하게 된 곳이며, 하느님의 뜻이 더욱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170:2.20 (1861.2) 예수는 사람이 신앙으로 그 왕국에 지금 들어간다고 가르치셨다. 다양한 강연에서 그는 그 왕국에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한 두 가지 기본 조건을 다음으로 가르치셨다:

170:2.21 (1861.3) 1. 신앙, 성실성. 어린아이처럼 올 것, 아들관계의 증여를 하나의 선물로 받아들일 것; 의심 없이, 그리고 아버지의 지혜에 대한 참된 신뢰와 충만한 자신감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복종할 것;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왕국에 들어올 것; 때 묻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열려 있고,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

170:2.22 (1861.4) 2. 진리를 갈망함. 의를 향하여 목이 마름, 마음을 바꿈,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리고 하느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동기를 획득함.

170:2.23 (1861.5) 예수는 죄가 어떤 결함이 있는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는 의지에 지배된 어떤 알고있는 마음의 소산이라고 가르치셨다. 죄에 관하여, 예수는 하느님께서 용서해 왔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러한 용서함은 우리 이웃을 우리 동료들을 용서하고 있는 행동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소용 있도록 만든다는 것을 가르쳤다. 너희가 육신 안에서 너희 형제를 용서할 때 그로서 너희는, 너희 자신이 저지른 나쁜 짓에 대한 하느님의 용서함의 그 실체를 받아들이기 위한 수용능력을 너희 자신의 혼속에 창조한다.

170:2.24 (1861.6) 사도 요한이 예수의 일생과 가르침들에 관한 이야기를 쓸 무렵에, 초기 그리스도교인에 대한 박해의 근원이었던 하느님-왕국에 대한 관념에 너무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그 말을 거의 버릴 지경이 되었었다.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많이 이야기한다. 예수는 그것을 "생명의 왕국"라고 자주 표현하였다. 또한 "너희 안에 있는 하느님의 왕국"에 대하여서도 자주 언급하였다. 그러한 체험을 "아버지 하느님과의 가족적인 친교"라고 표현한 적도 있었다. 예수는 왕국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많은 단어를 사용하려 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무엇보다도 그가 사용한 것은; 하느님의 가족, 아버지의 뜻, 하느님의 친구들, 믿는 자들의 형제관계, 사람의 형제신분, 아버지의 양 떼, 하느님의 자녀들, 충실한 자의 동료관계, 아버지의 봉사, 그리고 자유롭게 된 하느님의 아들들이었다.

170:2.25 (1861.7) 그러나 그는 왕국 관념의 사용을 피할 수가 없었다. 50년이 넘게 지난 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 비로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나서, 왕국에 대한 이 개념은, 사회적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들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그리고 결정화 되어가던 그리스도교 교회에 의해 점령되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배종파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제 3 장. 의(義)와의 관계

170:3.1 (1861.8) 예수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어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상 앞에서 그토록 자만함으로 과시하려고 하였던 노예근성의 행위들로 인한 그 의를 능가할 수 있는 의를 신앙으로 획득해야만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주려고 항상 노력하였다.

170:3.2 (1861.9) 예수는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 왕국 문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간 모든 믿는 아이들에게는 하느님의 튼튼한 아들로 충만하게 장성한 모습으로 자라가기 위하여 올라가야 할 정의(正義)의 진보적인 계단들이 있다는 것도 가르치셨다.

170:3.3 (1861.10) 하느님의 용서를 받고있는 기법을 고찰하는 것에서 왕국의 정의가 달성되었음이 계시된다. 신앙은 하느님의 가족에 들어가는 데 너희가 지불하는 요금이다; 그러나 용서는 너희의 신앙을 입장 요금으로 허락한 하느님의 행동이다. 그리고 왕국을 믿는 자가 하느님의 용서를 받아들임은 명백하고도 실재적인 체험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네 단계, 내적 정의(正義)의 왕국 단계로 이루어진다:

170:3.4 (1862.1) 1. 하느님의 용서는 사람이 자기 동료로 용서함에 따라서 그 만큼만 실재적으로 가능해지고 또 개인적으로 체험되는 것이다.

170:3.5 (1862.2) 2. 사람은 자기 동료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한, 진실로 그들을 용서하려는 것이 아니다.

170:3.6 (1862.3) 3. 네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최고의 윤리이다.

170:3.7 (1862.4) 4. 그렇다면, 도덕적 행위, 참된 정의는 그러한 사랑의 자연적 결과가 된다.

170:3.8 (1862.5) 그러므로 왕국에 대한 참되고도 내적인 종교는 반드시 그리고 점점 더, 사회적인 봉사의 실천적 큰길에서 그 스스로를 현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수는 믿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봉사로 수고하도록 유도하는 살아있는 종교를 가르치셨다. 그러나 예수는 종교의 자리를 윤리로 대체시키지 않았다. 종교를 원인으로 윤리를 결과로 가르치셨다.

170:3.9 (1862.6) 어떤 행동의 정의로움은 그 동기로서 측정해야만 한다; 선의 가장 높은 형태는 그리하여 무의식적인 것이다. 예수는 도덕과 윤리 그 자체에 그렇게 관여한 적이 없었다. 그는 하느님 아버지와의 안쪽으로 그리고 영적 동료관계에 전적으로 관여하였으며, 그 자체를 사람을 향한 바깥쪽으로 그리고 사랑 넘치는 봉사로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현시하였다. 그는 왕국의 종교는 진정한 개인적 체험이며, 그것은 어느 누구도 자신

안에 담아놓을 없는 것임을 가르치셨다; 그는 믿는 자의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어가는 의식은, 가족 행위 곧, 형제신분을 증진시키고 확대시키려는 노력 안에서, 자기 형제와 자매들에서의 봉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율의 실천으로 피할 수 없게 이끌어 준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170:3.10 (1862.7) 왕국의 종교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이다; 그 열매, 그 결과는 가족적이며 사회적이다. 예수는 공동체에 대비하여 개별존재의 신성함을 항상 강조하였다. 그러나 주(主)는 사람의 성격이 사심-없는 봉사를 통하여 개발된다는 것과; 사람이 이웃과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자신의 도덕적 본성을 펼친다는 것을 또한 인지하였다.

170:3.11 (1862.8) 개별존재를 드높임으로서, 그와 함께 그 안에 왕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심으로써, 예수는 낡은 사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고 그 안에서 참된 사회적 정의(正義)의 새로운 섭리시대로 인도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계층을 세상이 잘 알지 못한 것은 하늘의 왕국 복음의 원칙들을 실천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탁월한 이 왕국이 이 세상에 도래하게 될 때, 그것은 사회적 물질적 상태가 증진되는 것으로만

현시되는 것이 아니라, 증진된 인간관계들과 진보된 영적 달성을 이루면서 다가오는 시대의 특징인, 증진되고 확대된 영적 가치들의 영광 안으로 현시될 것이다.

제 4 장. 왕국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

170:4.1 (1862.9) 예수는 왕국에 대한 정밀하게 정의하신 적이 없다. 한 번은 왕국의 한 위상을 강연하고, 또 다른 때에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있는 하느님 통치하의 형제신분에 대한 다른 측면을 토의하고자 하였다. 이 안식일 오후 설교 도중에, 예수는 다음과 같이 왕국의 다섯 가지 상태 또는 신(新)시대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170:4.2 (1862.10) 1. 개별존재 믿는 자가 개인적 그리고 안쪽으로 하느님 아버지와 가지는 동료관계의 영적 삶의 체험.

170:4.3 (1863.1) 2. 복음을 믿는 자들의 확대되는 형제신분, 믿는 자들 각 개별존재의 가슴 속에서 하느님의 영이 통치한 결과로 생기는 증진된 도덕과 촉진된 윤리의 사회적인 양상들.

170:4.4 (1863.2) 3. 땅 위에 그리고 하늘 안에 널리 퍼져있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들의 초필사자 형제신분, 하느님의 초인간적 왕국.

170:4.5 (1863.3) 4. 하느님의 뜻에 대한 더욱 완전한 충족의 전망, 증진된 영적 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 질서의 여명(黎明)—사람의 다음 시대—를 향한 전진.

170:4.6 (1863.4) 5. 충만함 안에 있는 왕국, 땅에서의 빛과 생명의 미래 영적 시대.

170:4.7 (1863.5) 그런 까닭에 우리는 주(主)가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다섯 가지 상태 중에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주(主)의 가르침을 검토해야 한다. 점차적으로 바뀌는 사람 의지의 이러한 진행과 그리고 그에 따라 인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가엘과 그의 연관-동료들도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인간의 진화, 사회와 다른 여러 가지의 전 과정을 변화시키고 있다.

170:4.8 (1863.6) 이러한 경우에 주(主)는 왕국 복음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관점을 강조하였다:

170:4.9 (1863.7) 1. 각 개별존재에 대한 우선.

170:4.10 (1863.8) 2. 사람의 체험 속에서 결정 요소로서의 의지.

170:4.11 (1863.9) 3. 하느님 아버지와의 영적 교제.

170:4.12 (1863.10) 4. 사랑으로 하는 사람의 봉사에 대한 숭고한 만족들.

170:4.13 (1863.11) 5. 인간 개인성 속에서 물질적인 것에 대한 영적인 것의 초월성.

170:4.14 (1863.12) 이 세상은 하늘의 왕국에 대하여 예수가 원칙으로 세우신 이 힘이 넘치는 관념들과 신성한 이상들을 심각하게 또는 진지하게 또는 정직하게 살피본 적이 없다. 그러나 너희는 유란시아에서 왕국에 대한 관념이 아주 느리게 진행되는 것 때문에 낙담해서는 안 된다. 진보적인 진화의 계층은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둘 모두에서 갑자기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주기적 변화들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육신화한

아들로서 예수가 자신을 증여한 것은 것처럼 세상의 영적
일생에서 이상하고 기대치 않았던 사건이었다. 왕국의
시대적 현시활동을 찾으면서, 너희 자신의 혼과 함께 혼
안에서 왕국을 세우지 못하는 치명적 오류를 범하지 말라.

170:4.15 (1863.13) 예수가 비록 왕국의 한 위상을 미래적인 것으로
언급하고, 많은 경우에 그러한 사건이 세상의 위기의 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암시하였을지라도; 그리고
언젠가 틀림없이 유란시아로 돌아오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였을지라도, 이 두 가지 관념을 결코 연결시키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는 장차 언젠가 이 땅에
왕국을 새롭게 계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다; 언젠가 이
세상에 개인으로써 다시 오시겠다는 것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 약속들이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170:4.16 (1863.14)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두 가지 가르침들을 매우
확실하게 연결시켰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왕국이 현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미래의 왕국에
대한 주(主)의 가르침을 상기시키고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이 약속들이 동일한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고 비약하여 결론을 내렸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주(主)가 왕국을 그 충만함으로 그리고 힘과 영광과 함께 세우기 위하여 그가 즉각적으로 두 번째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계승되는 믿음을 가진 세대들은, 영감을 주면서 한편 실망이 되는 그 희망을 간직한 채로 이 땅에서 살아오고 있다.

제 5 장. 왕국에 대한 후일 관념

170:5.1 (1864.1) 하늘의 왕국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들을 요약하면서, 우리는 왕국의 개념에 덧붙여지고 그리고 다가 올 세대에서 전개될 수도 있는 그러한 왕국에 대한 예언적 예측에서 떠 오르는 특정한 후일의 관념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170:5.2 (1864.2) 그리스도교가 알려지기 시작한 첫 세기 동안 하늘의 왕국에 대한 관념은 급속도로 퍼져 나가는 그리스 이상주의 생각, 자연 세계는 영적 세계의 그림자라는 개념—현세(現世)는 영원한 세계의 시간적 그림자—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170:5.3 (1864.3)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을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 토양으로 옮겨 심겨지는 일을 이룩한 위대한 걸음은, 왕국의 메시아가 교회의 해방자, 바울과 그의 후계자들이 필로의 관념들과 선과 악에 대한 페르시아 교리로서 보충시킨, 그러한 그들의 활동으로 성장을 이룩하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조직체의 해방자가 되어가면서 이루어졌다.

170:5.4 (1864.4) 왕국 복음의 가르침 속에 체현되었던 예수의 관념과 이상들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가 선포한 것들을 점차적으로 왜곡시킴에 따라서, 그 실현에 거의 실패하였다. 왕국에 대한 주(主)의 개념은 두 가지의 큰 경향들에 의해 눈에 띄게 수정되었다:

170:5.5 (1864.5) 1. 유대인 신자들이 그를 메시아로 간주하기를 고집하였다. 그들은 예수가 곧 실재적으로 돌아와서 전 세계적인 다소간의 현세적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170:5.6 (1864.6) 2. 이방 그리스도교인들이 바울의 교리들을 매우 일찍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는데, 그 교리들은 예수가 교회에서의 자녀들의 구세주라는 일반적인 믿음으로 점차

인도하였으며, 왕국의 순수하게 영적 형제신분의 초기 개념을 새롭게 제도적으로 대신하였다.

170:5.7 (1864.7) 왕국의 사회적 생성물로서의 교회는 전적으로 자연적인 것이었으며 오히려 바람직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교회로 인한 해악은 교회의 실존이 아니라, 교회가 왕국에 관한 예수의 개념을 거의 완벽하게 대체해 버렸다는 것이다. 바울이 조직한 교회가 예수가 선포한 하늘의 왕국의 사실상 대용품이 되었다.

170:5.8 (1864.8) 그러나 주(主)가 가르친 그 하늘의 왕국이 믿는 자들의 가슴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이 그리스도교 교회는 물론, 땅위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들, 종족들, 국가들에서도—모든 개별존재에 이르기까지—선포되어질 것임을 의심하지 말라.

170:5.9 (1864.9) 예수가 가르친 왕국, 개별적 의로움의 영적 이상과 하느님과 사람간의 신성한 동료관계 개념은 예수라는 개인을 구세주-창조자, 그리고 사회화된 종교적 공동체의 영적 우두머리로 여기는 신화적 개념 속으로 점차 잠겨버렸다. 형식화되고 조직화된 교회가

개별적으로 영이-지배하는 왕국의 형제신분을 이런 식으로 대치해 버렸다.

170:5.10 (1864.10) 교회는 예수의 일생과 가르침에서 생긴 필연적이며 유익한 사회적 결과였다; 왕국의 가르침에 대한 이 사회적 반응이 예수가 가르치시고 또 그대로 사신 실제 왕국의 영적 개념을 너무도 충분히 대치해 버렸다는 사실에 비극이 있다.

170:5.11 (1865.1)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국은 이스라엘 공동체였으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리스도교 교회였다. 예수께 있어서 그 왕국은,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로써 하느님의 뜻에 그들의 전심어린 전념을 선포하고, 그리하여 사람의 영적 형제신분의 일원이 된 각 개별존재들의 총합이었다.

170:5.12 (1865.2) 주(主)는 왕국 복음이 퍼져나감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 결과들이 세상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바람직한 사회적 현시활동들이 신자들 각자의 이 내적(內的)인 개인적 체험, 모든 신자들 속에 있으면서 그들을 활성화하는 신성한 영과 가지는 순수하게 영적 동료관계와 교제에서

나오는, 무의식적이고 필연적인 부산물, 또는 자연스러운 열매들이기를 그는 바라섰다.

170:5.13 (1865.3) 예수는 어떤 사회적 조직 또는 교회가 참된 영적 왕국의 진보를 뒤따르리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 예식을 실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진리를 사랑하는 혼, 의를 위하여, 하느님을 향하여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은 영적 왕국에 대한 신앙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예수는 가르치셨으며; 사도들은 같은 시간에, 신자는 세례라는 외적인 예식을 통하여 제자들의 사회적인 조직 안으로 받아들여진다고 가르쳤다.

170:5.14 (1865.4) 예수를 직접 따랐던 자들이 각각의 믿는 자에 대한 영의 지배와 인도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가슴속에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그의 개념을 실현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실패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왕국에 대한 주(主)의 가르침 대신에 가시적인 사회적 조직, 그리스도교 교회를 점차 조성해 감으로써, 그의 가르침이 전적으로 없어지지 않도록 구해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대처 계획을 완수하였을 때, 왕국의 사실에

관한 주(主)의 가르침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인식시키기 위하여, 그들은 왕국을 미래적인 것으로 설정하기 시작하였다. 교회는, 지위가 안정 되자마자 곧, 왕국은 그리스도교가 절정에 이를 때, 그리스도가 두 번째로 오시는 때에 실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170:5.15 (1865.5) 이런 식으로 왕국이 하나의 시대적인 개념, 미래에 도래한다는 개념, 그리고 지고자의 성자(聖者)들에 대한 최종적 대속의 관념이 되었다.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그리고 나중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 왕국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에 체현된 아버지와-아들의 관념을 일반적으로 잃어버렸으며, 반면에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의 잘 조직된 사회적 친교로 대치하였다. 그리하여 교회는 대부분이 사회적 형제신분이 되었으며, 영적 형제신분에 대한 예수의 개념과 이상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였다.

170:5.16 (1865.6) 예수의 이상적인 개념은 크게 실패하였지만, 주(主)의 개인적 일생과 가르침의 기초 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개념을 덧붙이고,

영적인 것에 대비된 현세적인 것에 대한 필로의 교리를 증강시켜서, 바울은 유란시아에 존재하였던 것들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인간 단체를 세워 나갔다,

170:5.17 (1865.7) 예수의 개념은 세상의 앞선 종교들 속에서 아직도 살아있다. 바울의 그리스도교 교회는, 예수가 하늘의 왕국은 이렇게 되어야한다고 의도하였던 상태—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아주 확실히 다다를 상태—의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그림자이다. 바울과 그의 후계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개별존재에서 교회로 옮겼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왕국에 있는 아버지의 가족 안에서의 개별 신자의 형이 되기보다는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바울과 그의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가 그 자신과 개별 신자에 관하여 지녔던 모든 영적 암시를, 믿는 자들 무리로서의 교회에 적용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그들은 개별 신자의 가슴속에 있는 신성한 왕국이라는 예수의 개념에 치명적(致命的)인 타격을 가하였다.

170:5.18 (1866.1) 그리하여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도교 교회는 큰 낭패를 체험하였는데, 그것은 신비한 힘들과 특권들, 오직 예수와 그의 믿는 영적 형제들 사이에서만 체험되고 실행될 수 있는 힘들, 그리고 특권들에 대한 소유권을 교회가 감히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의 회원이 왕국에서의 친교를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 하나는 영적이고, 다른 하나는 주로 사회적이다.

170:5.19 (1866.2) 조만간에 세례자 요한 보다 더 위대한 다른 사람이 “하느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고—이것은 왕국은 믿는 자의 가슴속에서 지배적이고 초월적인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선포하였던, 예수의 높은 영적 개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선포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예상되는 재림을 어떤 방법으로도 언급하지 않고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이다. 예수의 실재적 가르침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반드시 올 것이며, 그러한 새로운 진술은 미가엘이 이 땅에 머무른 사실성에 대하여 사회-철학적 믿음의 체계를 창조하려 했던 그의 초기 추종자들이 일을 무효로 할 것이다. 짧은

시간에, 예수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의 가르침이 예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의 설교를 거의 대체해 버렸다. 이러한 길로 흐르면서 하나의 역사적 종교가, 예수가 그 속에서 사람의 가장 높은 도덕적 관념과 영적 이상들을 미래에 대한 인간의 가장 고상한 희망—영원한 생명—과 조화시키셨던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대신하여 들어섰다. 그리고 그것이 왕국의 복음이었다.

170:5.20 (1866.3) 몇 세기도 못 되어서, 그의 가르침들에 대한 기록들을 연구하던 생도들이 그토록 많은 예배종파들과 분파들로 나누인 것은 순전히 예수의 복음이 너무 다방면에 걸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이러한 비참한 분열은 주(主)의 비길 데 없이 뛰어난 일생의 신성한 단일성에 대한 주(主)의 여러 가지의 가르침들을 분별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를 참되게 믿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영적으로 분열되지 않은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항상 다양한 지적 이해와 해석, 심지어는 사회화에서의 다양한 등급들을 가질 수 있지만, 영적 형제신분의 결여는 용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난 받는 것이다.

170:5.21 (1866.4) 오류를 범하지 마라! 예수¹의 가르침 속에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언제까지나 열매를 맺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영원한 본성이 있다. 예수¹가 착상하였던 왕국은 대체로 이 땅에서 실패하였고; 한동안, 밖으로 내세우는 교회가 그 자리를 차지해 왔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오직 가로누워 좌절된 영적 왕국의 애벌레 단계이고, 이 물질적 시대를 거쳐 그것을 날라서 보다 영적 섭리시대로 옮겨줄 것이며, 거기서 주(主)의 가르침은 발전을 위한 더욱 충만한 기회를 누릴 지도 모른다는 것을 너희는 이해해야만 한다. 그래서 소위 그리스도교 교회는 그 안에서 왕국에 대한 예수¹의 개념이 현재 잠들어 있는 고치가 되어 있는 것이다. 신성한 형제신분의 왕국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마치 나비가 덜 매력적인 창조체에서의 탈바꿈하는 발전으로 아름다운 전개에 따라서 것처럼 결국에는 창발하는 것이 분명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오랜 침잠으로부터 결국에는 그리고 확실하게 그렇게 솟아날 것이다.

제 171 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171:0.1 (1867.1) 잊히지 않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설교가 있던 다음 날, 예수¹는 내일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며, 도중에 페레아 남쪽 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71:0.2 (1867.2)} 왕국에 관한 설교와 유월절에 참석하려고 한다는 발표는 모든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인 최극위의 현세적인 왕국의 시대를 시작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였다. 예수가 왕국의 비물질적인 성격에 관해 무슨 말씀을 하였을지라도, 유대인 청중들의 마음속에 있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본부를 둔 어떤 국가적 정부를 세울 것이라는 관념을 전혀 지울 수는 없었다.

^{171:0.3 (1867.3)} 안식일 설교에서 예수가 말씀하였던 것은 그저 그의 추종자들 대부분을 혼동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주(主)의 강연에 의하여 깨우쳐졌다. 영도자들은 내적인 왕국, "너희 안에 있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그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납득하기는 하였지만, 그들도 주(主)가 다른 미래의 왕국을 전에 말씀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바로 이 왕국을 세우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한다고 그들은 믿었다. 그들은 이 기대가 허물어졌을 때, 주(主)가 유대인들로부터

거부당하였을 때,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글자 그대로 파괴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 희망에 매달렸고, 주(主)가 곧 다시 이 세상에 큰 힘과 장엄한 영광과 함께 와서 약속한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었다.

171:0.4 (1867.4)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어머니 살로메가 사도인 두 아들과 함께 동양의 군주에게 나아가는 듯한 태도로 예수께 나아와서, 예수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자기가 요청하려는 것을 주시겠다고 미리 약속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주(主)는 약속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그녀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살로메가 대답하였다. “주(主)여, 당신은 이제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 저의 이 아들도 당신과 함께 영광을 얻어서, 당신의 왕국에서 한 아들은 당신의 오른쪽에 다른 아들은 당신의 왼쪽 편에 앉도록 미리 저에게 약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171:0.5 (1867.5) 살로메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는, “여인이여, 너는 네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였다. 그러시면서, 영광을 찾고자 하는 두 사도들의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했다; “내가 오랫동안 너희를 알았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희 어머니의 집에서 내가 살았었기 때문에; 항상 나와 함께 있도록 안드레가 너희를 배정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너희 어머니가 내게 비밀리에 올 수 있도록 너희가 허락하고, 이와 같은 보기 흉한 요청을 하도록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는데: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 주(主)여,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말씀했다; “우리가 왜 예루살렘에 가려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니 내가 슬퍼지며; 너희가 내 왕국의 본성을 깨닫지 못하니 내 가슴이 아프며; 너희가 너희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내게 이런 요청을 하도록 하니 내가 실망스럽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가 가슴속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정말 나의 쓴 잔을 마실 것이며 나의 굴욕을 함께 당하게 되리라고 내가 분명히 말하겠으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영예는 내 아버지께서 선정하실 자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이 때 어떤 사람이 이 대화 내용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전해 주었으며,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보다 먼저 발탁되고자 한 것과, 자기들 어머니와 함께 그러한 요청을 하기 위해 비밀리에 가려고 했다는 것에 매우 분개하였다.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날 때, 예수는 그들을 모두 함께 불러서 말씀하였다. "이방인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군림하는지, 그리고 지위가 높은 자들이 어떻게 권한을 부리는지를 너희들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왕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 중에 위대하게 될 자가 있다면, 먼저 그가 너희의 하인이 되게 하라. 왕국에서 첫째가 될 자가 너희의 사명활동자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건대, 사람의 아들은 사명활동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사명활동자로 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그리고 나의 형제들에게 봉사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버리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기도하기 각자 물러갔다. 그 날 저녁, 베드로가 애를 쓴 결과, 야고보와 요한이 열 명의 사도들 앞에서 적절한 사과를 하였으며 형제관계의 좋은 분위기를 되찾았다.

171:0.7 (1868.2) 예루살렘에서 예수와 오른 쪽과 왼 쪽 자리를 요구할 때, 세베대의 아들들은 한 달도 못되어 그들이 사랑하는 선생님이, 한 쪽에는 죽어 가는 강도 다른 쪽에는 다른 죄인과 함께 로마 십자가에 매달리라는 것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의 어머니는 그곳에 있었고, 펠라에서 예수께 사도인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너무나 지혜롭지 못하게 추구했던 명예를 어리석게 간청했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었다.

제 1 장. 펠라를 떠남

171:1.1 (1868.3) 3월 13일 월요일 아침나절에,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은 펠라 야영지를 아주 떠나게 되었으며, 아브너와 그의 연관-동료들이 일하고 있는 페레아 남쪽 지방의 도시들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그들은 70인을 방문하면서 두 주간 이상을 보낸 후에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

171:1.2 (1868.4) 주(主)가 펠라를 떠나실 무렵, 사도들과 함께 야영지에 같이 있었던 1,000명 정도의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여리고로 가는 요단강 길에서 예수와 헤스본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비용을 계산하라."는 주(主)의

설교를 들은 후에 이 무리들의 반 정도가 그를 떠났다. 나머지 반 정도의 무리들은 페레아 남쪽 성읍들을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까지 두 주 동안 그를 따라왔다.

171:1.3 (1868.5) 일반적으로, 예수를 가까이 따르는 자들 대부분은 펠라의 야영지가 포기되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주(主)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다윗의 왕권을 요구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실제로 생각하였다. 그를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다른 개념을 결코 파악할 수가 없었다; 주(主)가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을지라도, 그들은 왕국에 대한 유대인의 관념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171:1.4 (1868.6) 사도 안드레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서, 다윗 세베대는 3월 15일 수요일, 펠라에 있는 방문자용 야영지를 철수하였다. 이 무렵 거의 4,000명이나 되는 방문자들이 기거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선생님의 야영지라고 알려진 곳에, 예수와 열 두 사도들과 함께 내려간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도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와 12사도들과 함께 남쪽으로 갔다.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였지만, 모든 장비를 많은 상인들에게 팔아서 돈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며, 후에 가롯 유다에게 전해졌다.

171:1.5 (1869.1) 다윗은 비극적인 마지막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십자가형 후에 자기 어머니와 함께 벳세다로 돌아갔다. 예수와 사도들을 기다리는 동안, 다윗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으며, 그의 부활 이후로 그를 박해하고 괴롭히기 시작한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아주 심하게 흥분하였다. 안드레는 다윗에게 메신저 봉사를 중지하라고 지도하였었다;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예루살렘에 왕국(王國)이 곧 설립되려는 표시라고 해석하였다. 다윗은 스스로 할 일이 없어졌고, 그의 분개와 걱정의 대상이었던 나саро가 이윽고 서둘러 필라델피아로 피신하게 되자 그의 자아-임명한 보호자가 될 것을 독단적으로 결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 부활 이후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느 시기에, 다윗은 처음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일을 도와주었고 곧 필라델피아로 떠나갔으며; 그곳에서 아브너와 나사로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남은 일생을 보냈는데, 아브너가 살아있는 동안 필라델피아에 그들의

본부를 두었던 그 왕국의 많은 이익금을 모두 관리하는 재정 감독자가 되었다.

171:1.6 (1869.2)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짧은 시간 안에, 안디옥은 바울파 그리스도교의 본부가 되었고, 반면에 필라델피아는 아브너파 하늘의 왕국 중심지로 남아 있었다.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에 관한 바울파의 해석이 안디옥으로부터 서방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하늘의 왕국에 관한 아브너파 해석을 따르는 선교사들이 필라델피아로부터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 지역으로 퍼져 나갔고,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이 사자들이 갑자기 흥성한 이슬람에게 압도(壓倒)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제 2 장. 비용 계산에 대하여

171:2.1 (1869.3) 예수와 거의 1,000명에 이르는 따르는 사람들이 한 때 베다바라고 불렸던 요단의 베다니 시냇가에 도착하였을 때, 제자들은 그가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머뭇거리면서 서로 토의를 하고 있는 동안, 예수는 아주 큰 바위 위에

올라가셔서 “비용을 계산해 보라”라고 알려지기 시작한 강연을 전하였다. 주(主)는 말씀했다:

171:2.2 (1869.4) “너희가 이 후로 나를 따라오려면,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전심으로 봉헌하는 값을 기꺼이 치러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부모와 아내와 자식들과 형제자매들을 기꺼이 버려야만 한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금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서 그리고 육신을 입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려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포기해야한다.

171:2.3 (1869.5) “만일 너희가 값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겠다면,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너희가 길을 더 가기 전에, 각자 앉아서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너희 땅에 망대를 짓기 전에 먼저 앉아서, 그것을 다 완성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을 사람이 너희들 중에 누가 있느냐? 만일 너희가 그렇게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는다면, 기초를 놓은 후에, 시작은 하였지만

완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너희의 이웃 사람들이 모두 너희를 비웃으면서, '보라, 이 사람이 자기 일을 완결할 수도 없으면서 건축을 시작하였다.'고 말할 것이다. 다시 말하겠는데,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할 때, 일 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 만 명의 적을 이길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상의를 하지 않겠느냐? 만일 그 왕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의 적에 대항할 만큼 잘 제공할 수가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그에게 사절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물어볼 것이다.

171:2,4 (1879.1) "그러니 이제, 너희들도 각자 앉아서 내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우리의 뒤를 따라, 가르침을 듣고 또 일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따를 수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심한 박해에 직면해야 될 것이고, 부서뜨리는 실망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가진 것들을 모두 바치기를 원치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만일 너희가 가슴속으로 이미 너희 자신을 정복하였다면, 사람의 아들이 우두머리 사제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 거부되고,

조롱하는 믿지 않는 자들의 손에 넘기어질 때, 너희가 현시적으로 얻어야만 하는 외적 승리에 대하여, 그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

171:2.5 (1879.2) “너희는 지금 내 제자가 되기 위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아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명예와 영광을 찾는다면, 너희가 만일 세속적으로 마음먹고 있으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것으로 맛을 낼 수 있겠느냐? 그러한 양념은 쓸모가 없어서; 오직 쓰레기로 버려질 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는데, 너희가 만일 준비된 잔을 나와 함께 기꺼이 마시지 않으려거든, 집으로 돌아가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하였지만, 너희는 내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171:2.6 (1879.3)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예수는 열 두 사도들을 데리고 헤스본 쪽으로 떠났으며, 5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 절반의 다른 군중들은 잠시 지체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사도들은 수제자들과 함께 이

말들을 많이 생각해 보았지만, 잠시 동안의 역경과 시험이
있을 후에,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그들의 희망과 어느
정도 일치되는 왕국이 분명히 세워지리라는 믿음을
여전히 버리지 않았다.

제 3 장. 페레아 여행

171:3.1 (1870.4) 예수와 열 두 사도들, 그리고 따라오는 수 백 명의
제자들은 두 주 이상 페레아 남쪽 지방을 다니면서, 70인이
일하고 있는 모든 성읍들을 방문하였다. 이 지역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으며, 그리고 유월절 축제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왕국 메신저들은 계속 가르치고 전파하였다.

171:3.2 (1870.5) 예수는 헤스본에서 아브너를 만났으며, 안드레는
유월절 축제 때문에 70인의 사명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도하였다;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완벽하게 무시하고 메신저들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또한 그는 아브너에게
여자대원들이 원한다면 유월절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도록 허락해 주라고 조언하였다. 그리고 아브너가 육신
속에 계신 주(主)를 본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주(主)는

아브너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나의 아들이, 나는 네가 왕국에 충실하리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네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납득하도록 네게 지혜를 주시라고 아버지께 기도한다.”

171:3.3 (1870.6) 그들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가는 동안,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떠났으며, 그리하여 예수가 유월절을 위하여 올라가시기까지 따르는 자들이 매일 매일 줄어들어서 200명 미만의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171:3.4 (1871.1) 사도들은 예수가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것을 깨달았다. 산헤드린이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알렸다는 것과,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헤드린에 알려야 한다고 지도하였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필라델피아에서 나사로를 만나러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였을 때처럼 놀라지는 않았다. 강한 두려움으로부터, 묵묵히 확신하는 이러한 태도로의 변화는 주로 나사로의 부활 때문이었다. 그들은 위험한 순간이 되면, 예수가 신성한 힘을 나타내시고 그의

적들에게 모욕을 주실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희망은, 주(主)의 영적 최극위에 대한 그들의 보다 깊고 성숙된 신앙에 연결되어, 그가 죽어야만 한다는 산헤드린의 공개적인 선포에 직면하여 예루살렘으로 그를 따라 들어가 준비가 된, 그를 가까이 따르는 자들이 밖으로 보여준 용기의 원인이 되었다.

171:3.5 (1871.2) 사도들 대부분과 많은 핵심 제자들은 예수가 죽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었고, 그를 불멸의 존재로 그리고 이미 죽음에 대해 승리를 얻은 존재로 간주하였다.

제 4 장. 리비아스에서 가르침

171:4.1 (1871.3) 3월 29일 수요일 저녁,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페레아 남쪽 지방의 도시들에 대한 그들의 여행을 다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리비아스에서 야영을 하였다. 시몬 젤로떼와 시몬 베드로는 100개 이상의 검을 그들의 손으로 넘겨받기로 공모하고, 이 무기들을 받은 후에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그들의 외투 밑에 감추어 착용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 날 밤 리비아스에서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主)가 그 정원에서 배반을 당한 그 밤까지도 칼을 지니고 있었다.

171:4.2 (1871.4) 목요일 아침 일찍 다른 사람들이 깨기 전에, 예수는 안드레를 부르셨다. “네 형제들을 깨워라! 내가 그들에게 할 말이 있다.” 예수는 사도들이 받아들여서 무기로 지니고 있는 그 검에 관해 알고 계셨지만, 자기가 그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는 숨겼다. 안드레가 연관-동료들을 깨웠고, 그들끼리 모여 있을 때, 예수는 말씀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고, 이 시간에 필요할만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많이 가르쳤지만, 이제 너희에게 경고하려는 것은 육신적인 불확실한 것들을 믿지 말라는 것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련들과 시험에 대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방어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따로 불러낸 것은, 사람의 아들을 죽이기로 이미 판결을 내린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가려는 것을 한 번 더 분명하게 말하고자 함이다.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겠는데, 사람의 아들이 우두머리 사제들과 종교 통치자들의 손에 넘기어질 것이다; 그들이 그를 재판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며,

심지어는 그에게 침을 뱉고 그를 채찍질할 것이며, 결국 죽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아들을 죽였을 때, 당황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가 셋째 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선포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주의하고 기억하라.”

171:4.3 (1871.5) 사도들은 또 다시 놀라서 기절할 정도였으나; 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다; 주(主)가 말씀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본부를 둔, 이 땅에서의 현세적 왕국 때문에 너무 눈이 멀어 있었으므로,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主)가 무슨 의미로 그러한 이상한 말씀을 하였는지를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감히 이 말씀에 관하여 묻는 자가 그들 중에 아무도 없었다. 당황한 사도들은 그의 죽음 후에야 주(主)가 그들에게 자신의 십자가형을 예견하면서 분명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였던 사실이 실현된 것으로 깨어났다.

171:4.4 (1872.1) 어떤 우호적인 바리새인이 아침식사 직후에 예수께로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바로 이

리비아스에서였다. “이 곳에서 빨리 피하십시오. 헤롯이 세레자 요한을 찾았던 것처럼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여 당신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신이 도망가실 수 있도록 이 말을 전하려고 우리가 왔습니다.”

171:4.5 (1872.2) 이 말은 부분적으로 옳았다. 나사로의 부활로 놀라고 무서워진 헤롯은, 산헤드린이 재판도 하기 전에 예수를 유죄판결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서, 예수를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 영토에서 쫓아내든지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후자 쪽을 실제로 원하였는데, 그것은 그를 너무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를 강제로 죽이지 않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었다.

171:4.6 (1872.3)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신 예수는 말씀했다; “나는 헤롯을 잘 알고, 왕국 복음에 대한 그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잘 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그는 사람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통을 받고 우두머리 사제들의 손에 죽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 그는 세레자 요한의 피로 자기 손을 더럽히고서도, 사람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

여우에게 가서, 사람의 아들이 오늘은 페레아에서 전파하고, 내일은 유대로 갈 것이고, 그리고 며칠 후에는 이 땅에서의 그의 임무가 완전해 질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라갈 준비를 할 것이라고 전해라.”

171:4.7 (1872.4) 그리고 나서 예수는 사도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했다;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으니, 사람의 아들도 인간의 편협성에 대한 값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편견과 영적 무지로 인한 결과로 희생되기 위하여 아버지 집이 있는 그 도시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구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로 모으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너희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고 하였으나, 너희가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였느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여러 번 보려고 하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때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하겠지만,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둘러선 사람들에게 말씀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에 참석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171:4.8 (1872.5) 이 날 예수를 따라서 여리고에 들어간 사람들은 혼동되고 당황한 무리의 신자들이었다. 사도들은 왕국에 관련하여 예수가 선포한 최후의 승리에 대한 특별한 언급만을 식별할 수 있었을 뿐 이었다; 그들은 임박한 패배에 대한 경고를 파악해보려는 지경까지 생각할 수가 없었다. 예수가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는 말씀을 하였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유대인 종교 영도자들과의 사소하고 불쾌한 임시적 논쟁이 있는 직후에 있을 그 왕국의 확실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셋째 날"이라는 것은 "당장에" 또는 "얼마 있다가 곧"이라는 의미로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말이었다. 예수가 "일어나리라"는 말씀을 하였을 때, 그들은 그가 "그 왕국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71:4.9 (1872.6) 예수는 이 믿는 자들에게 메시아로 받아들여졌으며, 유대인들은 고난 받는 메시아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하였다. 예수가 그의 일생으로 성취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죽음으로 이루시리라는 것을 그들은 납득하지 못하였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것이 나사로의 부활이었던 반면에,

이러한 괴로운 증여 기간 동안 주(主)를 격려해 준 것은 변화에 대한 기억이었다.

제 5 장. 여리고의 맹인

171:5.1 (1873.1) 3월 30일 목요일 늦은 오후에, 예수와 사도들은 200여 명의 따르는 무리들 앞에 서서, 여리고 성벽에 도착하였다. 그들이 성문에 가까이 왔을 때, 거지 떼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는 어려서부터 눈이 먼 바티메우스라 하는 노인이 있었다. 눈이 먼 이 거지는 예수에 대하여 많이 들었으며, 예루살렘에서 장님 요시아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베다니에 갔을 때에서야 예수가 지난번에 여리고를 방문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티메우스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는 다시는 예수가 여리고에 들어가시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171:5.2 (1873.2) 예수가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이 여리고에 알려지자, 수 백 명의 주민들이 그를 만나려고 몰려 나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主)를 호위하면서 도시로 다시 돌아올 때, 바티메우스는 군중들의 큰 발자국 소리를 듣고, 보기 드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하고서,

가까이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거지들 중의 하나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대답하였다. 예수가 가까이 계시다는 말을 들은 바티메우스는, 소리를 높여서 크게 외치기 시작하였다. “예수, 예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그가 점점 더 큰 소리로 계속 외치자, 예수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가서 꾸짖으며, 잠잠히 있으라고 말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칠 뿐이었다.

171:5.3 (1873.3) 예수는 그 장님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조용히 서 계셨다. 그를 보시고서 자기 친구들에게 말씀하였다. “그 사람을 내게로 데려 오라.” 그러자 그들이 바티메우스에게 가서 말했다; “기운을 내고; 우리와 함께 가자. 주(主)가 너를 부르신다.” 바티메우스는 이 말을 듣고, 외투를 벗어 던진 채로 길 한 가운데로 뛰쳐나갔으며, 가까이에 있던 자들이 그를 예수께로 데려갔다. 바티메우스를 가리키시며 예수가 말씀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 장님은 대답하였다.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이 간청을 들으시자 그의 신앙을 보시고 말씀했다; “네가 보게

될 것이니; 네 길을 가라; 네 신앙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그는 즉시로 보게 되어, 예수 곁에 남아서, 계속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다음 날 주(主)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자, 그는 군중들 앞에 먼저 가면서 어떻게 하여 그가 예리고에서 다시 보게 되었는지를 큰 소리로 외쳤다.

제 6 장. 삭개오를 방문하심

171:6.1 (1873.4) 주(主)를 따르는 행렬이 예리고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었으며, 주(主)는 그 날 밤을 그곳에서 머물고자 하였다. 예수가 세관 옆을 지나가게 되자, 세무장인 세금 징수원 삭개오는 어쩌다가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는 예수를 몹시 보고 싶어 하였다. 이 세무장은 매우 부자였으며, 갈릴리에서 온 이 선지자에 관하여 많은 것을 들었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다음에 다시 예리고에 오게 되면 어떤 사람인지 한 번 보겠다고 결심하였으며, 따라서, 삭개오는 사람들 속을 헤치고 들어갔지만, 무리가 너무 많았고, 그의 키가 작았으므로, 그들 머리 위로 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 세리 장은 자기가 사는 곳으로부터 별로 멀지 않은 그 도시 한 가운데에 이를 때까지 무리를 뒤쫓아 갔다. 군중을 뚫고 들어갈 수 없음을 발견하고, 또한 예수가 그 도시에 머물지

않고 바로 지나쳐 가시려한다고 생각하고서, 그는 앞으로 달려가 가지들이 길 쪽으로 뻗어 있는 무화과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지나가시는 주(主)를 잘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생각대로, 예수는 지나가시다가, 멈추시고 삭개오를 보시면서 말씀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오늘 밤 내가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는 놀라운 이 말씀을 듣고, 나무에서 거의 떨어질 뻔하며 급히 내려왔으며, 예수께로 가서 주(主)가 자신의 집에 머물려고 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171:6.2 (1874.1) 그들은 즉시 삭개오의 집으로 갔으며,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세무장과 함께 있기로 제안한 것에 대하여 무척 놀랐다. 주(主)와 사도들이 삭개오와 함께 아직 그의 문 앞에 있을 때, 여리고의 바리새인 하나가 가까이 서서 말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 자기 백성을 강요하고 강탈하는 배반자인 죄인과 같이 있으려고 하는 이 사람을 보라.” 예수가 이를 듣고 삭개오를 내려다 보시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삭개오는 의자 위에 서서 말했다; “여리고의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저는 세리이며 죄인이지만, 위대한 선생님께서 나의 집에

머무시려고 왔으며; 그가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내일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아무에게나 그릇되게 강요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며, 하느님 앞에서 의를 행하기를 배우고자 합니다.”

171:6.3 (1874.2) 삭개오가 말을 멈추자 예수가 말씀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으며, 너는 진실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주변에 모여 있는 군중들에게 예수가 말씀했다; “내가 말한 것에 놀라지 말며, 우리가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는 것을 내가 오랫동안 선포하지 않았느냐.”

171:6.4 (1874.3) 그들은 삭개오와 함께 그 밤을 보냈다. 그들은 다음 날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하여 베다니로 가는 “강도들의 길”로 올라갔다.

제 7 장. “예수가 지나가시면서”

171:7.1 (1874.4) 예수는 어디든지 가시는 곳마다 기운을 북돋워 주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의 연관-

동료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항상 감탄하였다. 너희는 자선을 육성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애심은 사랑함으로-포화를 이룬 혼에서 발산되는 우애심의 향기이다.

171:7.2 (1874.5) 선(善)은 존중을 피할 수 없게 하지만, 자애로움이 결여되면 애정을 쫓아낸다. 선(善)은 자애로울 때에만 보편적으로 마음을 끌어 당긴다. 선(善)은 오직 마음을 끌어 당길 때에만 효력이 있다.

171:7.3 (1874.6) 예수는 사람을 정말로 납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동정심을 나타내시고 진정한 연민을 현시하였다. 그러나 동정심에 빠지신 적은 드물었다. 그의 연민의 정은 무한한 반면, 그의 동정심은 실천적이고 개인적이었으며 건설적이었다. 고통을 잘 아심으로 해서 무관심하게 된 적이 없었으며, 그들이 자아-연민에 더 빠져들지 않도록 하면서도, 고통 받는 혼들을 돌보실 수 있었다.

171:7.4 (1874.7) 예수는 사람을 너무나도 진지하게 사랑하였던 그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었다. 그는 각각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였다. 그가

그러한 참된 친구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놀라운 통찰력—사람의 가슴과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주 충분히 아셨다— 때문이었다. 그는 흥미를 가진 예리한 관찰자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노련하게 감지하였으며, 인간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현명하게 간파하였다.

171:7.5 (1874.8) 예수는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그는 “지나가시면서” 연관-동료들을 위로하는 여유를 가졌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였다. 그는 남의 이야기를 경탄할 만큼 잘 들었다. 연관-동료들의 혼을 꼬치꼬치 캐묻고 조사하는 법이 없었다. 굶주린 영들을 위로하고 목마른 혼들을 돌보실 때, 그의 자비를 받은 자들은 그에게 참회한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그와 의논하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 그들은 주(主)가 자신들을 너무나도 깊이 믿으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무한한 자신감을 가졌다.

171:7.6 (1875.1) 그는 사람들에 관하여 알려고 캐물으시는 것처럼 보이신 적이 없었으며, 지도하거나 조종하거나 또는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태도를 현시한 적이 없었다. 그는

자기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자아-확신과 강한 용기를 고취시켜 주었다. 그가 미소를 지으시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증진되는 것을 체험하였다.

171:7.7 (1875.2) 예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현명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였으므로, 단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대하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다. 그는 종종 도움을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착수했다. 흥미를 북돋우는 이런 방법으로, 인간의 보다 선한 본성들에게 호소하였다.

171:7.8 (1875.3) 주(主)는 자기 옷자락에 손을 댄으로써 병 고침을 얻고자 하였던 여인의 조잡한 미신적 행위 속에서, 구원 얻는 신앙을 분간하실 수 있었다. 그는 어느 한 사람, 심지어는 어린아이일지라도 보살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꺼이 설교를 중단하고 군중들을 기다리게 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도 그들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171:7.9 (1875.4) 예수가 말씀하고 행동한 것들 중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들은 “지나가시면서” 우연히 된 것처럼 보인다. 주(主)의 이 땅에서의 사명활동에는 직업적이거나 잘 계획된 것이거나 또는 미리 계획된 것이 거의 없었다. 그는 일생을 영위하면서 자연적으로 그리고 은혜롭게 건강을 나누어주고 행복을 뿌려 주었다. “그는 부지런히 선을 행하였다.”는 말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171:7.10 (1875.5) 어느 시대이든지 주(主)를 따르는 자들은 “지나가면서” 섬기는 것—일상적인 자기 의무를 부지런히 하면서, 헌신적인 선을 행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제 8 장. 파운드의 비유

171:8.1 (1875.6) 지난밤에 예수가 삭개오와 그의 가족들에게 왕국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늦게까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정오가 가까이 되어서야 여리고를 떠났다. 베다니로 올라가는 길을 반쯤 갔을 때, 일행들은 점심을 먹기 위하여 잠시 멈추었고, 한편 군중들은 예수와 사도들이 올리브 산에서 묵으시려는 것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나갔다.

171:8.2 (1875.7) 모든 제자들을 위해 예정되었던 달란트의 비유와는 달리, 파운드에 관한 비유는 오직 사도들에게만 주로 해당되는 것이었으며, 유대 왕국에 대한 주권을 지배하고자 하였던 아켈라우스의 체험과 그의 헛된 시도에 기초한 것이었다. 예수의 비유들 중에서 실재적인 역사적 인물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들이 아켈라우스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의 집이 아켈라우스의 화려한 궁전에서 가까웠으며, 그의 수로(水路)가 그들이 여리고로부터 출발하였던 그 길을 따라 나있었기 때문이었다.

171:8.3 (1875.8) 예수는 말씀했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왕국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어떤 영주가 한 왕국을 자신의 것으로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으나, 그가 돌아오기도 전에, 가슴속으로 이미 그를 거부하였던 그의 영지(領地)에 있는 시민들이 그에게 한 대사를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돌아와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이 왕이 현세의 통치를 거부당한 것과 같이, 사람의 아들도 영적 통치를

거부당할 것이다. 내가 다시 확실하게 말하겠는데, 내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의 아들이 그의 백성들의 영적 통치를 수여 받았었다면, 그는 사람들의 혼의 그러한 왕국을 받아들여 왔을 것이고, 인간 가슴의 그러한 영토를 다스려왔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한 나의 영적 통치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지금 거부되고 있는 그러한 영의 왕국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이기 위하여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지금 사람의 아들이 거부되는 것을 볼 것이지만, 다음 세대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거부하는 그것은, 받아들여질 것이고 드높여질 것이다.

171:8.4 (1876.1) “그리고 이제, 이 비유에서 거부당한 그 귀족처럼, 나도 열 두 하인들, 특별한 청지기들을 내 앞에 불러서, 너희 각자의 손에 한 파운드씩을 맡기면서,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너희에게 맡겨진 자본으로 부지런히 장사하여, 내가 돌아와 너희에게 요구되는 계산을 하고자 할 때 너희의 청지기직을 제대로 하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라고 충고할 것이다.

171:8.5 (1876.2) “그리고 거부당한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다른 아들이 이 왕국을 받아들이도록 보내졌으며, 그때 이 아들은 너희의 청지기관계에 대한 보고를 받아들이고 그 얻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171:8.6 (1876.3) “그리고 그 후에 이 청지기들이 같이 불러가서 계산을 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나아와 말하였다. ‘주님, 당신의 파운드로 그에 보태어 열 파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주(主)가 그에게 대답했다; ‘잘하였다; 너는 이 일에 신실하였으니 너는 착한 하인이다. 내가 너에게 열 개의 도시를 다스릴 권한을 주겠다.’ 두 번째가 와서 말하기를, ‘주님, 제게 맡겨주신 당신의 파운드로 다섯 파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주(主)는, ‘그에 따라서 네가 다섯 도시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모두 계산을 하고 마지막 하인의 차례가 되어, 계산을 하게 될 때, 그가 보고했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 당신의 파운드가 있는데, 제가 형겅에 싸서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당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수확하려고 찾으시는 것을 보았기에 이치에 따르는 분이 아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主)가

말했다; ‘게으르고 불충한 하인아,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내가 명백하게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수확하려고 한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이 계산을 하라고 네게 요구할 것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을 알았다면, 네가 적어도 나의 돈을 은행에 맡겨서 합당한 이자라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171:8.7 (1876.4) “그리고 나서 이 관리는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게으른 하인에게서 그 돈을 가져다가 열 파운드를 남긴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그 사람은 이미 열 파운드를 갖고 있다고 말하였을 때, 그는: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고, 없는 자로부터는 그가 갖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171:8.8 (1876.5)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이 비유의 의미와 지난번의 달란트 비유의 의미의 차이점을 찾아보려고 하였으나, 예수는 그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하여 오직, “이 말들을 가슴속에 잘 생각해 보고, 각자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아라.”고 말씀하실 뿐이었다.

171:8.9 (1876.6) 여러 해가 지난 후, 이 두 비유의 의미를 잘 설명한 사람은 나다니엘이었는데, 그의 가르침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71:8.10 (1876.7) 1. 능력은 일생의 기회들에 대한 실천적인 척도이다. 너희 힘을 벗어난 것을 성취해야 할 의무는 너희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171:8.11 (1876.8) 2. 신실함은 인간 신뢰감 발산의 오차없는 척도이다.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모든 것에서 그 자신의 자질과 일치되어 똑같은 신실함을 보일 것이다.

171:8.12 (1876.9) 3. 주(主)는 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적게 신실한 자에게는 적게 보상한다.

171:8.13 (1877.1) 4. 그는 기회가 적었을 때에는 충실함만큼 같은 보상을 주신다.

171:8.14 (1877.2) 그들이 점심 식사를 끝내고, 따르는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난 후에, 길옆에 있는 머리 위로 걸쳐져 있는 바위 그늘 아래에서 사도들 앞에 일어나셔서, 손가락으로 서쪽을 가리키시며 활기찬 존엄성과 품위 있는 장엄함으로 말씀했다; “자, 나의 형제들아,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자;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모두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171:8.15 (1877.3) 그리하여 예수와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육신
가운데에서의 주(主)의 마지막 여행을 다시 시작하였다.

제 172 편 예루살렘으로 들어감

172:0.1 (1878.1) 예수와 사도들이 베다니에 도착한 것은 서기.
30년 3월 31일 금요일 오후 4시가 막 지나고 있을 때였다.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 그리고 친구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
물어보려고 매일같이 올라 왔으므로, 나사로의 아버지가
죽은 이후 그 작은 마을을 지도하고 있으며 믿는 자인 이웃
주민 시몬의 집에서 머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음을
예수께 알렸다.

172:0.2 (1878.2) 그 날 저녁, 많은 방문자들이 예수를 찾아왔으며,
베다니와 벳바게의 서민들은 그가 환영받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시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산헤드린의 사형 선고에 공공연히
반항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려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베다니 가족들—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은 주(主)가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니시라는 것을 더 잘 깨닫고 있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에 대한 그의 이번 방문이 아마도 마지막일 것이라고 어렵듯이 느꼈다.

172:0.3 (1878.3) 우두머리 사제들은 예수가 베다니에 머물고 계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지만, 그의 친구들 속에 계실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를 체포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하였다. 예수는 이 모든 것을 아셨으나, 장엄하게 침착하였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그토록 차분하고 기분이 좋으신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사도들조차도 산헤드린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를 잡아오라고 요구하였을 때 그가 그토록 태연한 것에 매우 놀랐다. 그 날 밤 주(主)가 주무시는 동안 사도들은 둘씩 짝이 되어 그를 지켰으며, 그들 대부분은 칼을 차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수 백 명의 순례자들 때문에 잠이 깨었는데, 그들은 그 날이 안식일이었는데도, 죽음에서 일어난 나사로와 예수를 만나려고 왔던 것이다.

제 1 장. 베다니에서의 안식일

172:1.1 (1878.4) 유대 땅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온 순례자들과, 유대인 당국자들은 모두,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축제에 참석할까요?”라고 물었다. 그러므로 예수가 베다니에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좋아하였지만, 우두머리 사제들과 바리새인들은 다소 난처해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고 싶어 하였지만, 그의 대담성 때문에 조금 당황하였다; 그가 전에 베다니를 방문하였을 때,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났던 것과, 예수의 적들에게 나사로가 큰 문젯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였다.

172:1.2 (1878.5) 유월절 엿새 전,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시몬의 집에서 예수의 도착을 축하하는 대중 연회에 베다니와 벳바게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이 만찬은 예수와 나사로를 축하하기 위하여 베풀어졌으며; 산헤드린에 구매받지 않고 제공되었다. 마르다는 음식 시중드는 일을 지도하였고; 그녀의 자매인 마리아는 대중 연회에 여자들이 앉아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위배되기 때문에 구경하는 여자들 속에 있었다. 산헤드린에서 보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를 체포하는 것은 두려워하였다.

172:1.3 (1879.1) 예수는 자신과 이름이 같은 옛날 사람 여호수아에 관하여 시몬과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여리고에 들어왔는지를 자세히 말씀하였다.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전설에 대하여 예수는, "나는 벽돌과 돌맹이로 지은 그런 성벽에는 관심이 없지만; 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이러한 설교를 함으로써 편견과 자아-정의로움 그리고 증오의 벽이 무너져 내리게 할 것이다.

172:1.4 (1879.2) 모든 사도들이 평상시와는 달리 침착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회가 매우 즐겁게 그리고 일상적인 방식대로 진행되었다. 예수는 유난히 기뻐하였으며, 자리에 앉기 전까지 아이들과 함께 노셨다.

172:1.5 (1879.3) 잔치가 끝날 무렵까지 아무 것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끝날 때가 가까이 되자,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여인 구경꾼들의 무리 가운데서 앞으로 걸어나와, 주변 석에 비스듬히 앉아 계신 예수께로 가서, 매우 귀하고 비싼 향유가 들어 있는 앨러베스터 유리 단지를 열었다; 주(主)의 머리에 바른 뒤에, 그녀는 그것을 그의 발에 붓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녀의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 그것으로 그것들을 닦아내었다. 온 집안은 그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차기 시작하였으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가 행한 일에 놀라게 되었다. 나사로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 중의 몇몇이 것처럼 비싼 향유가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에 분개하는 빛을 보이면서, 중얼거렸을 때, 가롯 유다는 비스듬히 앉아있는 안드레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이 향료가 팔려서 가난한 자를 먹이도록 증여되는 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주(主)께 말씀드려서 그러한 낭비를 꾸짖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172:1.6 (1879.4) 예수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아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자기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마리아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다정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말씀했다; “너희는 모두 이 여인을 가만두라. 너희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있음을 보면서, 어찌하여 이에 대하여 그녀에게 불편함을 가지느냐? 이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에게 주었어야 한다고 투덜거린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너희에게는 가난한 자들이 항상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적당하면 어느 때라도 그들을 돌볼 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곧 내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 여인은 장사지낼 내 육신을 위하여 이 향유를 오랫동안 간직해 왔으며, 이제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예상하여 이 기름을 부은 것이니, 이 여인에게에는 만족함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마리아는 이 행동을 통하여, 내가 죽을 것이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라는 내 말에 대한 신앙을 보여줌으로써, 너희 모두를 꾸짖은 것이다. 이 여인은 오늘밤에 한 행동에 대하여 꾸지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앞으로 오는 세대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지 그녀를 기억하며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이야기될 것임을 말하고 싶다.”

172:1.7 (1879.5) 가룟 유다가 개인적 책망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그가 자기의 상한 기분을 위하여 양값음을 찾는 것으로 그의 마음을 달랬던 것이 바로 이 꾸지람이었다. 그는 그러한 관념들을 무의식중에 여러 번 떠 올렸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사악한 생각을 공공연히 그리고 의식 중에 감히 마음에 품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이 이러한 태도를 갖도록 그를 부추겼는데, 이 향유의 값이 한

사람의 일 년 수입에—5,000명에게 빵을 나누어주기에 충분한—해당되는 값어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를 사랑하였고; 시체에 바르는 이 값비싼 향유를 그녀가 준비한 것은, 주(主)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였을 때 그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으며, 자기 마음이 변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주(主)가 아직 살아 계실 때 이것을 그에게 드리고자 하였던 것이다.

172:1.8 (1879.6) 마리아가 이 백송향이 담긴 이 옥합을 사기 위하여 오랫동안 돈을 모아왔다는 것을 나사로와 마르다는 둘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가 진심으로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대로 허락하였던 것은, 그들이 부유하였으므로 그런 헌물은 어렵지 않게 잘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172:1.9 (1880.1) 예수와 나사로를 위한 만찬이 베다니에서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우두머리 사제들은 나사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기들끼리 상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윽고 그들은 나사로도 반드시 죽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살려준 나사로를 살려두고, 예수만을 죽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제 2 장. 일요일 아침에 사도들과 함께

^{172:2.1 (1880.2)} 이 날 일요일 아침에, 주(主)는 시몬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열 두 사도들을 옆으로 부르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주의 사항을 말씀하였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도 여러 번 강론하고 가르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사도들은 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는 대중을 위한 일은 어떤 것도 행하는 것을 삼가하라고 충고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자기 곁에 따라다니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예수는 사도들과 가까이 따르는 자들 대부분이 몰래 칼을 휴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172:2.2 (1880.3)} 이날 아침의 교육에는, 가버나움 근처에서의 사도임명이 있던 후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날까지의, 그들의 사명활동에 대한 간단한 회고가 포용되었다. 사도들은 조용히 듣기만 하였다;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172:2.3 (1880.4) 그날 아침 일찍 다윗 세베대는 펠라 야영지의 장비들의 처분으로 실현된 자금을 가롯 유다에게 건네주었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위급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유다는 다시 이 돈의 대부분을 그들을 초대하였던 시몬에게 맡겼다.

172:2.4 (1880.5) 사도들과의 의논이 끝난 후에 예수는 나사로와 말씀을 나누시면서 산헤드린의 복수심에 목숨을 희생하는 일은 피해야한다고 충고하였다. 나사로는 이 훈계에 순종하여, 며칠 후 산헤드린 관리들이 자기를 잡으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필라델피아로 피신하였다.

172:2.5 (1880.6)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가는 도중에 위기가 박두하였다는 것은 느꼈지만, 주(主)의 보기 드문 기쁨과 비범한 아름다운 유머 때문에 그 심각성을 충분히 깨닫지는 못하였다.

제 3 장. 예루살렘을 향한 출발

172:3.1 (1880.7) 베다니로부터 성전까지는 약 2마일 거리였으며, 예수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한 시간은 일요일 오후 1시 30분경이었다. 그는 베다니와 그곳에 있는 순박한 주민들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셨다. 나사렛과 가버나움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를 배척하였지만, 베다니는 그를 환영하였으며, 그를 믿었다. 그의 지상 증여에서의 가장 막강한 일, 나사로의 부활을 행하기로 선택한 장소가 바로 이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남자와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대부분이 믿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나사로를 살렸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이미 믿었기 때문이었다.

172:3.2 (1880.8) 예수는 아침 내내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하여 생각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공개적인 메시아로 환영하는 어떤 움직임도 억제해 왔지만, 지금은 다른 상황이었다; 육신 속에서의 삶을 끝내실 시기가 가까워졌고, 산헤드린으로부터 사형을 언도받았으며, 제자들이 자신들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여도 아무런 위험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정식으로 그리고 공개적인 입성을 택한다 해도 그러한 것은 발생하리라 싶었다.

172:3.3 (1881.1) 예수는 예루살렘으로의 이 공개적인 입성을,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삼으려고 결정하였다거나, 힘의 마지막 쟁취를 위해 결정한 것도 아니었다.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인간적으로 열망하는

것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한 것도 아니었다. 예수는 공상적으로 꿈꾸는 자들의 환상들을 일절 거부하였다; 이번의 방문에서 무엇이 발생할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다.

^{172:3,4 (1881.2)} 주(主)는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입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러한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하였다. 예수는 소위 메시아적 예언들이라 불리는 다소 모순된 많은 것들을 모두 상고해 보셨지만, 자신이 따르기에 적당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듯이 보였다. 이 예언적 표현들 대부분은 한 왕, 다윗 왕의 아들이요 후계자이며, 외국의 통치에 의한 멍에로부터 모든 이스라엘을 구해줄 대담하고 공격적인 현세적 해방자를 묘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사명활동의 영적개념에 대하여 좀더 아는 사람들이 종종 메시아와 연관시켜 왔었던 하나의 성서 구절이 있었는데, 예수는 그의 예루살렘으로의 구체적으로 투사된 입성을 위한 지침으로 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 성서는 스가랴서였으며, 기록했다; “크게 기쁨을 향유하라, 오 시온의 딸아; 외쳐라, 오 예루살렘의 딸아. 보라,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로 온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가져오신다. 낮은 자로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망아지, 곧 당나귀의 새끼라.”

172:3.5 (1881.3) 전쟁을 하는 왕은 항상 말을 타고 도시에
들어갔다; 평화와 우호의 사명을 가진 왕은 항상 나귀를
타고 도시에 들어갔다. 예수는 말을 탄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으며 대신, 당나귀를 탄
사람의 아들로써 평화롭게 그리고 선한 뜻을 가지고
들어가고자 하였다.

172:3.6 (1881.4) 예수는 자신의 왕국이 이 세상에 있지 않으며,
그것은 순전히 영적 문제라는 것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서 전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하였으나;
이 노력은 모두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가 평이하고 개인적
가르침으로 실패하였던 것을, 이제는 상징적인 호소를
통하여 이루려고 시도하려 하였다. 따라서 예수는 점심
식사 직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셔서 베다니 북서쪽 큰
길 옆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 마을인 벳바게로 가라고
지도한 후에 말씀했다; “벳바게로 가서, 사거리가 나오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데려오도록 하여라.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다만 '주(主)가 이것을 필요로 한다.'고만 대답하여라." 그리고 두 사도들이 주(主)가 지도한 대로 벳바게에 갔을 때, 길모퉁이에 있는 집에서 가까운 한가한 길에서 어미 곁에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하였다. 베드로가 그 나귀새끼를 풀기 시작하였을 때, 주인이 다가와서 그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물었으며, 베드로가 주(主)가 지도하였다고 대답하자, 그 사람은 말했다; "만일 당신들의 주(主)가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라면, 그 나귀 새끼를 가져다 드리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돌아왔다.

^{172:3,7 (1881.5)} 수 백 명의 순례자들이 이때까지도 예수와 사도들 곁에 모여 있었다. 아침나절 중간쯤부터,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나가던 방문자들이 그곳에 머물렀다. 그러는 동안, 다윗 세베대와 전에 그의 메신저였던 몇몇 연관-동료들은 서둘러 예루살렘에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방문하고 있는 수많은 성전 순례자들 속에 나사렛 예수가 승리의 행진으로 도시에 들어가실 것이라는 소식을 효과적으로 퍼뜨리기로 하였다. 따라서 수 천 명의 방문객들이 선지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으며 기적을 베푸는, 메시아라고 믿어지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때를 지어 앞으로 나아갔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이 군중들은, 올리브 산 정상을 지나 도시로 내려오기 시작한 예수와 무리들을 만났다.

172:3.8 (1882.1) 그 행렬이 베다니를 출발하였을 때, 대개 갈릴리와 페레아로부터 온 제자들과 믿는 자들 그리고 방문하기 위한 순례자들로 구성된, 축제에 참석하려는 무리들은 크게 열광하고 있었다. 그들이 출발하기 직전에, 초기 여자 대원이었던 열 두 명의 여인들이 연관-동료들 몇 명과 함께 도착하여 이 광경을 보았으며, 도시를 향하여 기쁨에 넘쳐서 움직이는 이 진기한 행렬에 동참하였다.

172:3.9 (1882.2)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쌍둥이 형제 알패오는 그들의 겹옷을 나귀 위에 얹고 주(主)가 타실 수 있도록 붙들어드렸다. 행렬이 올리브 산꼭대기를 향하여 움직이자, 축제에 참석하려는 군중들은 왕가의 아들, 약속된 메시아를 태우고 있는 나귀에게 경의를 표하는 양탄자를 깔기 위하여 그들의 옷을 길에 깔고, 가까이에서 나뭇가지들을 가져왔다. 즐거워하는 무리들은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노래하기 시작하였고, 시편을 한 음성으로 읊으면서,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에게 축복을.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왕국에 축복을.”이라고 외쳤다.

172:3.10 (1882.3) 그 성과 성전 탑들이 잘 내려다보이는 올리브 산꼭대기에 이를 때까지, 예수는 무리들과 함께 명랑하고 즐거워하였지만; 주(主)는 그곳에서 행렬을 멈추게 하였고, 그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자, 무거운 침묵이 모두에게 엄습하였다. 거대한 군중이 자신을 환영하려고 도시에서 나오는 모습을 내려다보시면서, 주(主)는 크게 감동되고 슬픔이 가득한 음성으로 말씀하였다. “오 예루살렘아, 그토록 값없이 가질 수 있었던, 너희 평안에 속한 것들을, 네가 이렇게 한창일 때에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은 이 영광들이 네 눈에서 가리어져 있다. 너는 평화의 아들을 거부하려고 하며, 구원의 복음에 등을 돌리려고 한다. 너의 적들이 너희를 둘러 진을 치고 포위할 그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그들은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너를 철저히 파괴할 것이다. 너에게 오는 신성한 방문의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네게 일어날 것이다. 너는 하느님의 선물을 거부하려고 하며, 모든 사람들이 너를 저릴 것이다.”

172:3.11 (1882.4) 그가 말씀을 마치시자, 그들은 다시 올리브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으며, 얼마 안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든지 아니면 즐거워 떠들고 서로 반기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방문객 무리들과 합세하였다. 이러한 군중이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것은 주(主)가 계획하였던 것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이 꾸민 일이었다. 그는 극적인 일을 미리 꾸미는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었다.

172:3.12 (1882.5) 주(主)를 환영하기 위하여 쏟아져 나온 군중들 속에는, 많은 바리새인 그리고 다른 적들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하였던 민중의 환호에 너무나도 당황하였으며, 민중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도록 조장할 수도 있으므로 그를 체포하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대부분이 그를 믿는, 그 많은 방문객들의 태도를 무척 두려워하였다.

172:3.13 (1882.6)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군중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시위하였으므로, 바리새인들 중 일부가 예수 곁을 따라 길을 올라가면서 말했다; “선생이여, 점잖게

행동하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고 타이르셔야만 합니다.” 예수는, “우두머리 사제들이 거부한 평화의 아들을 이 자녀들이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을 멈추게 한다면, 그들 대신에 길옆에 있는 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172:3.14 (1882.7) 그 바리새인들은 그 때 성전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산헤드린에 합세하기 위하여 서둘러 행렬 앞으로 갔으며, 연관-동료들에게 보고하였다. “보라, 우리가 한 일들이 아무 소용도 없게 되었다; 이 갈릴리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난처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노도와 같이 그에게로 몰려 나갔으니; 우리가 이 무식한 자들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면 온 세계가 그를 따를 것이다.”

172:3.15 (1883.1) 이러한 외견상의 자연적인 민중들의 열광에는 아무런 깊은 의의(意義)가 실제로 없었다. 이러한 환영은, 기쁘고 진지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축제에 참석한 이 군중들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실제적인 신념을 조금도 나타낸 것이 아니었다. 동일한 이 군중들은 이 주간의 마지막에 산헤드린이 그를 배척하기로 굳게 결의하고, 자신들이 환멸을 느꼈을 때—그들이 오랫동안

기대해 왔던 것에 따라 왕국을 예수가 세우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마찬가지로 곧 기꺼이 예수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172:3.16 (1883.2) 그러나 도시가 온통 크게 소동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군중들은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오신 선지자, 나사렛 예수시다.”하며 대답하였다,

제 4 장. 성전 근처를 방문

172:4.1 (1883.3) 알패오 쌍둥이 형제들이 나귀를 주인에게 돌려주러 간 동안, 예수와 열 명의 사도들은 가까이 있는 연관-동료들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성전을 거닐었으며, 유월절을 준비하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산헤드린이 사람들을 크게 무서워하였으므로 예수를 방해하는 일은 없었으며, 그것은 결국 군중들이 예수를 환호하도록 허락한 이유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사도들은 도시에 들어갔을 때 예수를 즉시 체포하지 않도록 효력을 발생한 이 사건이 단순한 인간 행태였다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주(主)는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모든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또한 수 만 명의 유월절

방문객들에게 복음을 듣고 원한다면 평화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 싶었다.

172:4.2 (1883.4) 그리하여 이제 저녁이 되고 군중들이 양식을
찾으러 갔으며, 예수와 그를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만이
남아 있었다. 얼마나 유별난 하루였는지! 사도들은 생각에
잠겨서 아무 말도 없었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하였던 지난
기간 동안 이런 날을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보관함 옆에
앉아서 사람들이 기부금을 넣는 것을 보았는데: 부자들은
수납상자에 많이 집어넣었으며 모두 자기 소유 정도에
따라서 얼마씩 내었다. 마침내 초라하게 차려입은 한
가난한 과부가 왔으며, 그들은 그녀가 두 전(작은
구리동전)을 깔때기 모양의 구멍에 넣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예수는 사도들에게 그 과부를 주목해 보라고
하면서 말씀했다; “너희가 방금 본 것을 명심하도록 해라.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내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사치스러움으로부터 약간의
푼돈 안에서 선물로서 던져 넣었지만, 그러나 이 가난한
여인은 그녀가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 살아가는 데 쓸 것까지 내어 놓았기
때문이다.”

172:4.3 (1883.5) 저녁이 가까워지자, 그들은 말없이 성전 뜰을 거닐었으며, 예수가 전에 방문하였던 것과 관련된 감정들을 회상하면서, 이 친숙한 장면들을 한 번 더 둘러보신 후에 말씀하였다: "우리의 휴식을 위하여 베다니로 가자." 예수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시몬의 집으로 가셨으며, 다른 사도들은 베다니와 벳바게에 있는 친구들 집에 머물렀다.

제 5 장. 사도들의 태도

172:5.1 (1883.6) 이 날 일요일 저녁 그들이 베다니로 돌아올 때, 예수는 사도들보다 앞장서서 걸었다. 시몬의 집에 도착한 후 서로 헤어질 때까지 한 마디의 말도 없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열 두 명의 사람이라도, 왕국 대사(大使)들의 마음과 혼속에 지금 밀려들어온 것과 같은, 그토록 다양하고 설명할 수 없는 체험들을 한 적은 없었을 것이다. 강인한 이 갈릴리 사람들은 혼동되고 당황하여;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다; 너무나도 놀라서 두려워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 그들은 주(主)가 내일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으며,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숙소로 돌아갔으나, 쌍둥이 형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시몬의 집에 계시는 예수를 지키기 위하여 칼을 휴대하지는 않았다.

172:5.2 (1884.1) 안드레는 아주 당황해서 거의 혼동된 상태였다. 그는 환호하는 민중들을 심각하게 평가하지 않은 유일한 사도였다. 그는 사도 대원들의 대표자(代表者)로서의 자기 책임에 대한 생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대중들이 호산나를 크게 외친 의미나 의의(意義)에 진지한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었다. 안드레는 그의 연관-동료들 중에 흥분하여 그 소동 속에서 가담(加擔)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들,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시몬 젤로떼를 지켜보기에 바빴다. 안드레는 이 날부터 며칠 동안 내내 심각한 의심으로 괴로웠지만, 그의 연관-동료 사도들에게는 이 의심들을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칼을 차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12사도들 중 일부의 태도를 걱정하였지만; 자기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가 그러한 무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의 행진은 안드레에게 비교적 피상적인 인상을 주었을 뿐이고; 그는 자기가 맡은 책임에 너무 바빠서 다른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다.

시몬 베드로는 처음에는 열광에 빠진 이 민중의 현시활동 때문에 거의 온 몸이 붕 떠 있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베다니로 돌아옴으로써 상당히 침착하게 되었다. 베드로는 한 마디로, 주(主)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 그는 예수께서 이런 군중적 인기의 물결을, 어떤 무언가의 선포로 따라가지 않는 것에 아주 심하게 실망하였다. 베드로는 그들이 성전에 도착하였을 때, 예수가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어쩌서 적어도 사도들중의 하나에게는 군중들 앞에서 연설하도록 허락하지도 않았는지,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었다. 베드로는 위대한 설교자였고, 그토록 많은, 잘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있는, 그리고 열정적인 청중들을 헛되이 가도록 놔두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성전에 있는 바로 그 군중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만; 주(主)는 이 유월절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어떤 가르침이나 설교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미 그들에게 특별히 명령하였었다. 성안으로 들어가는 대대적인 행렬에 대하여 행한 반응은 시몬 베드로에게는 비참한 것이었다; 그는 밤이 되자, 제 정신이 들었고, 말할 수 없도록 슬픔에 잠겼다.

172:5.4 (1884.3) 야고보 세베대에게 있어서, 이 일요일은 당황과 깊은 혼동의 하루였으며; 무엇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이토록 거센 환호를 허락하고서 그 뒤에는 성전에 도착하였을 때 사람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주(主)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행렬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리브 산을 내려갈 때, 특히 그들이 주(主)를 환영하려고 쏟아져 나오는 수 천 명의 순례자들을 만났을 때, 야고보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해 가슴 뿌듯함과 충족,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도착하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심한 두려움에 의한, 이 서로 엇갈리는 감정 때문에 마음이 몹시 산란해졌다. 그러고 나서 예수가 나귀에서 내려와 성전 뜰을 한가히 걸으실 때 낙심하였고 실망으로 가득 찼다. 야고보는 왕국을 선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왜 놓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밤이 되자, 그의 마음은 비참함과 무서운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

172:5.5 (1884.4) 요한 세베대는 예수가 왜 이렇게 하였는지 어느 면에서는 가깝게 납득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는 소위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식에 대한 영적 의의(意義)를 적어도 일부분은 파악하였다. 군중들이 성전으로 움직일 때,

요한은 나귀에 걸터앉으신 주(主)를 붙잡으면서, 언젠가 예수가 성서에서 인용하였던 스가랴서를 상기하였으며, 그 내용은 평화의 사람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었다. 요한은 마음속에서 성서를 이모저모 따지면서, 이 일요일 오후 행렬의 상징적인 의의(意義)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적어도 그는 마침내 이 에피소드의 뜻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성서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였으며, 걸보기에 아무 의미 없이 개선의 행진이 끝난 것 때문에 지나치게 우울해지는 것이 방지되었다. 요한은 상징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가진 마음 유형을 지니고 있었다.

172:5.6 (1885.1) 빌립은 쏟아져 나온 군중들의 갑작스러움과 자발성 때문에 전적으로 안정을 잃었다. 그는 올리브 산을 내려올 오는 동안 그 시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떤 안정된 정신을 차릴 만큼 그의 생각을 충분히 가다듬을 수 없었다. 그는 주(主)가 예우를 받으시는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광경을 즐겼다. 그들이 성전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예수가 아마도 그 군중들을 먹이라고 자기에게 명하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였으므로, 예수가

그처럼 군중들로부터 유유히 떠나시는 행위에, 사도들 대부분은 몹시 낙심하였지만, 빌립은 매우 안심이 되었다. 열 두 사도들의 사무장이었던 그에게 군중들은 때로 큰 시련이었다. 군중들에 대한 물질적 필요에 관한 이들 개인적 두려움에서 벗어나 지자, 빌립은 베드로와 합세하여 군중들에게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은 것에 실망하였다고 말하였다. 빌립은 그 날 밤 이러한 체험들을 되새겨 보면서 왕국에 대한 관념 전체를 의심하는 유혹을 받았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솔직하게 궁금하였지만, 자신의 의심을 아무에게도 표현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였다. 그는 주(主)에 대한 매우 큰 개인적 신앙을 가졌다.

172:5.7 (1885.2) 나다니엘은,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는, 주(主)가 유월절 순례자들의 대중적인 지지를 얻은 이유를 가장 가깝게 납득하였다. 그는 추측하기를, 예루살렘에 그렇게 시위하며 입성하지 않고는, 그들이 성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도시에 들어가려는 순간 예수가 산헤드린 관리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힐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일단 성곽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유대인 영도자들에게 그를 즉시 체포하는 일을

억제하도록 그렇게 강제적으로 감동을 주게 되었을 때, 주(主)가 환호하는 집단들을 더 이상 활용하지 않으시려는 것에 대해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나다니엘은 주(主)가 왜 이런 방법으로 도시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실제 이유를 납득하였으므로, 예수의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 다른 사도들 보다 자연스럽게 더 안정되어 있었으며, 동요나 낙심하는 정도가 덜하였다. 나다니엘은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의 납득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다루는 그의 총명성과 영리함에도 마찬가지로 매우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172:5,8 (1885.3) 마태는 이 화려한 행렬 행위에 처음에는 당황하였다.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구원을 가져옴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 한, 선지자가 암시했던 스가랴서를 그도 역시 기억할 때까지는, 자기 눈에 비치고 있는 모습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행렬이 도시를 향하여 움직이고 마침내 성전에 가까워지자, 마태는 환희에 빠졌다; 소리치는 군중들 앞에 계신 주(主)가 성전에 도착하면 엄청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를 조롱하며, “여러분들, 여기에 누가 오는가를 좀 보십시오.

나귀를 타고 오는 유대인의 왕입니다!”라고 말하였을 때, 마태는 크게 자제함으로서 가까스로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 날 저녁 베다니로 돌아갈 때, 열 두 사도들 중에서 마태보다 더 우울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시몬 베드로와 시몬 젤로떼 못지않게, 신경이 가장 곤두서는 체험을 하였고, 밤이 되자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마태는 훨씬 원기를 회복하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씩씩한 패자였다.

172:5.9 (1886.1) 도마는 모든 열 두 사도들 중에서 가장 당황하고 어리둥절해진 사람이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고, 그 광경을 둘러보면서, 그러한 유별난 시위에 주(主)가 어떤 동기에서 참여하는 지에 대하여 정직하게 궁금해 하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 그는 모든 행위가 유치하게 여겨졌고, 그도 아니라면 영락없이 바보 같다고 여겼다. 그는 예수가 결코 이런 일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었으며, 이 일요일 오후의 그의 이상한 행위를 설명하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이 성전에 도착하게 되어서, 도마는 민중들의 이러한 시위의 목적이 산헤드린을 매우 놀라게 해서 그들이 감히 주(主)를 즉시로 체포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고 추론하였다.

도마는 베다니로 돌아가는 길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자리에 들 무렵에는 예루살렘에의 떠들썩한 입성 장면에서 보여주신 예수의 영리함이 어떤 재미있는 호소를 이끌어내기 시작했고, 그는 이로 인하여 매우 활력을 찾았다.

172:5.10 (1886.2) 시몬 젤로떼에게 이 일요일은 어떤 위대한 날로 깨어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다음 며칠 동안의 예루살렘에서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았다, 그 점에서는 그가 옳았지만, 그러나 시몬이 꿈꾼 것은 예수가 다윗의 보위에 앉아있고, 유대인들의 새 국가 통치가 확립되는 꿈이었다. 시몬은 왕국이 선포되자마자 민족주의자들이 행동으로 일어나면서, 자신은 새 왕국의 군집하고 있는 군사력의 최극 지휘를 맡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올리브 산을 내려가 길에, 산헤드린과 모든 그들의 동조자들이 그 날 해가 지기 전에 죽는 것을 환상으로 보기까지 했다. 그는 실제로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질 예정이라고 믿었다. 그는 모든 군중들 중에서도 가장 소리가 컸다. 그 날 오후 5시가 되자, 그는 침묵했고, 기가 꺾이고 환상을 버리게 된 사도였다. 그는 이 날 충격의

결과로서 그에게 덮친 우울증으로부터, 적어도 주(主)가 부활한 후 한참 지날 때까지, 충분히 벗어날 수 없었다.

172:5.11 (1886.3) 알패오 쌍둥이 형제에게 이 날은 완전한 날이었다. 그들은 실제로 모든 것을 끝까지 즐겼으며, 성전을 조용히 방문하는 동안은 자리에 있지 않았으므로, 민중의 격동이 최고로 식어버린 분위기는 느끼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날 저녁 베다니로 돌아왔을 때, 기가 꺾인 사도들의 태도를 도무지 납득하지 못했다. 두 쌍둥이들의 기억 속에서 이것은 그들에게 이 땅에서 하늘에 가장 가까웠던 날로 남아 있었다. 이 날은 사도로서의 그들 전 생애에서 만족함을 주는 절정이었다. 그리고 이 일요일 오후의 의기양양했던 추억은 파란 많은 이 주간의 모든 비극을 그들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것은 쌍둥이가 착상할 수 있는, 가장 어울리는 왕의 입장식 이었다; 그들은 화려한 행렬 전체의 모든 순간을 즐겼다. 그들은 그들이 본 모든 것을 충분하게 받아들였고 그 기억을 오래도록 소중히 간직하였다.

172:5.12 (1886.4)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롯 유다는 예루살렘으로의 이 행렬을 이룬 입장에서 가장 불리하게 영향을 받았다. 그

전 날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연회에서 마리아가 기름을 부은 일과 관련하여 주(主)의 꾸지람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불쾌한 감정으로 들끓었다. 유다는 모든 광경 전부가 혐오스러웠다. 그에게는 그것이 유치하게 보였고, 그것도 아니라면 참으로 비웃을 일로 보였다. 복수심이 가득한 이 사도가 이 일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에게 예수는 왕이라기보다 어릿광대처럼 보였다. 그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가슴깊이 분개하고 있었다. 그는 당나귀나 나귀 새끼를 탄 사람을 깔보는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의 시각을 갖고 있었다. 개선 행렬이 도시로 들어갈 즈음이 되자, 유다는 그러한 왕국의 모든 관념을 내버리기로 그의 마음을 거의 작정하였다; 하늘의 왕국을 세우려는 모든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시도를 저버리기로 거의 작정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나사로의 부활과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보았고, 그리고 적어도 하루 더, 열 두 명과 함께 머물기로 결정했다. 게다가 그가 돈주머니를 갖고 있었으므로, 사도들의 자금을 지닌 채로 떠나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 날 밤 베다니로 돌아가는 길에서, 다른 사도들도

모두 똑같이 풀이 죽고 침묵하였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다.

172:5.13 (1887.1) 유다는 자신의 사두개인 친구들의 비웃음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예수와 동료 사도들을 버리기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예수가 성문에 막 도착하였을 때 발생한 어떤 에피소드만큼, 다른 어떤 한 요소가 그에게 그토록 큰 영향을 준 것은 없었다: 한 저명한 사두개인(유다 집안의 친구)이 그에게 달려와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매우 즐겁게 조롱하는 말투로 말하기를, “여보게, 자네는 왜 표정이 그렇게 침통한가; 기운을 내고, 나귀 등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오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를 환호하는 우리들에게 동참하지 않겠나.” 유다는 어떤 박해에도 굴복한 적이 없었지만, 이런 비웃음에는 견딜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간직해 왔던 복수의 감정이 조롱받는다는 이 치명적 두려움, 주(主)와 동료 사도들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소름끼치고 두려움이 가득한 느낌과 뒤섞이게 되었다. 사도임명 받은 이 왕국의 대사는, 가슴에서 이미 도망자였다; 주(主)와 드러내놓고 단절하기 위한 어떤 그럴듯한 핑계를 찾는 일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제 173 편 예루살렘에서의 월요일

173:0.1 (1888.1)

월요일 이른 아침, 사전 약속에 의해서, 예수와 사도들은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모였으며, 잠시 의논이 있은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열 두 사도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상할 만큼 조용하였다; 그들은 전날의 체험으로부터 아직 회복이 되지 못하였다. 그들은 기대감이 있었고, 두려워했고, 이번 유월절 주간에 두루 그들이 어떠한 대중을 위한 가르침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그의 지시와 함께, 주(主)의 갑작스럽게 전술을 바꿈으로서 생긴 어떤 초연한 느낌 때문에 깊숙이 영향을 받고 있었다.

173:0.2 (1888.2)

이 일행들이 올리브 산을 내려갈 때, 예수는 앞서서 가셨고, 사도들은 생각에 잠겨 침묵하는 가운데 그 뒤를 가까이 쫓아갔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똑같이 맨 먼저 떠오른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主)는 오늘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유다가 열중한 한 가지 생각은: '어떻게 할까? 연관-동료들과 함께 예수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그만둔다면, 어떤 방법으로 결별할까?' 하는 것이었다.

173:0.3 (1888.3) 이들이 성전에 도착한 것은 쾌청한 이날 아침 9시경이었다. 그들은 예수가 여러 번 가르치셨던 넓은 뜰로 바로 나아갔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는 신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에, 예수는 가르치는 강단 중 하나로 올라가셔서 모인 청중들에게 연설을 시작하였다. 사도들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물러가서 되어 가는 일을 기다렸다.

제 1 장. 성전을 깨끗이 하다

173:1.1 (1888.4) 성전 경배의 예배봉사와 예식에 관련된 수많은 상업 행위들이 거대하게 발전되어 왔다. 여러 종류의 희생물로 바쳐지기에 합당한 동물들을 제공하는 장사가 있었다. 경배자들 자신이 직접 희생제물을 마련하는 것은 허용은 되었지만, 이 동물이 레위 율법에 견주어보고, 그리고 성전 검사관의 판단으로 볼 때 전혀 "흠"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경배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완전하다고 여기는 동물이 성전 검사관들에게 퇴짜를 맞는 창피를 체험하곤 했다. 그 때문에 희생 동물을 성전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욱 일반적인 실천 관행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리고 올리브 산 가까이에 그들이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곳이 있었지만, 이들 동물을 성전에 있는

가축우리에서 직접 구입하는 일이 유행이 되어 왔었다. 점차적으로 성전 뜰에서 모든 종류의 희생제물용 동물들을 파는 이러한 관습은 성장하여 갔다. 그리하여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주는, 광범위한 장사가 이렇게 실존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다. 이들 소득의 일부는 성전 금고를 위해 비축 되었지만, 그러나 나머지 더 많은 부분은 성전을 지배하는 대제사장 가족들의 손 안으로 직접 들어갔다.

173:1.2 (1888.5) 이 성전 안에서의 동물 판매가 번영했던 이유는, 값이 약간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배자가 그러한 동물을 사면, 더 이상의 비용을 내지 않았으며, 시도하는 희생물이 실제로 혹은 기술적으로 흠을 가지고 있다는 빌미로 거부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때에는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 체계가 보통 국민들에게 적용되었으며, 특별히 국가적인 대 축제 기간 동안에 그러하였다. 어떤 때는 탐욕스러운 사제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몇 페니에 팔려야 될 비둘기 한 쌍을 일주일 분의 노동에 해당되는 값을 요구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 “안나스의 아들들”은 이미 성전 구내에 그들의 매장들을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러한 상점들은 성전 자체가

파괴되기 3년 전에 폭도들에 의해 폐점될 때까지 계속 존재한 바로 그 상품 매매 장소들이었다.

173:1.3 (1889.1) 그러나 희생물용 동물들과 잡다한 물품들을 거래하는 행위만이 성전 뜰을 더럽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다. 이 때 당시, 성전의 경내 바로 안에서 실행된 은행업무와 상업용 환전으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체제가 육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아스모니아 왕조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자신들 특유의 은화를 만들어 사용했으며, 이 유대인의 은전으로 성전 세금으로 반 세겔을 내는 것이 실천 관행이 되도록 하였으며 다른 모든 성전 요금들도 이 유대인용 동전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으로 말미암아, 팔레스타인 전역은 물론 로마제국 각 지방에서 통용되는 수많은 종류의 돈을, 유대인이 자체적으로 찍어낸 이 정통적인 세겔 은화로 바꾸어 주기 위하여 환전상들에게 허가를 내주는 것이 뒤따라 올 수밖에 없었다. 여자들, 종들, 그리고 미성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성전 인두세(人頭稅)는 반 세겔이었으며, 그 동전은 10 센트 동전과 대략 같은 크기였지만, 두께가 두 배쯤 되는 동전이었다. 예수 당시에

사제들은 성전세가 면제되었다. 따라서 유월절에 앞서서 그 달 15일부터 25일 사이에, 허가 받은 환전상들이 팔레스타인 주요 도시마다 환전소들을 설치하고 팔레스타인 및 로마 제국 곳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성전 세(稅)를 바칠 수 있도록 돈을 바꾸어 주었다. 이 10일 동안의 기간이 끝나면 이들 환전상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 성전 뜰에 돈을 바꾸어주는 탁자를 설치하였다. 그들은 약 10센트의 가치가 있는 은전으로 바꾸어 줄 때마다 3센트 내지 4센트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더 큰 가치가 있는 은화로 바꾸어 줄 때에는 그들이 두 배까지 징수하는 것도 허락되었다. 마찬가지로 이들 성전의 은행가들도 희생용 동물들을 사기 위한 돈이나, 서약을 위한 비용이나 또는 헌납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돈을 바꾸어주면서 이익을 챙겼다.

173:1.4 (1889.2) 성전에 있는 이러한 환전상들은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20여 종류 이상의 돈을 바꾸어줌으로써 이익을 보는 정기적 은행업무뿐만 아니라, 그들은 은행 업무에 부속된 여러 가지 다른 거래에도 또한 관여하였다. 성전 재무관과 성전

관리들 모두는 이러한 상업 행위로부터 엄청난 이익금을 거두어들였다. 민중들이 가난에 쪼들리면서 이렇게 부당한 세금을 계속 제공하는 동안 성전의 재무관이 천만 불 이상의 돈을 챙기는 것은 보통이었다.

173:1.5 (1889.3) 이 월요일 아침에, 환전상들, 상인들, 그리고 가축 판매자들의 시끄러운 무리들 속에서, 예수는 하늘왕국의 복음을 가르치고자 하였다. 성전을 더럽히는 이러한 일에 예수만 분개한 것이 아니라; 보통 국민들, 특히 외국 지방에서 방문한 유대인들도 또한, 그들의 국가적인 경배처소를 모독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이런 일에 진심으로 분개하였다. 이 때 산헤드린 자신은 매매와 물물교환으로 인한 이러한 모든 소음과 혼란에 둘러싸인 채로 회의장 안에서 정기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173:1.6 (1890.1) 예수가 막 연설을 시작하려 할 때, 그의 주의를 끄는 일들이 두 가지 발생하였다. 가까이에 있는 환전상의 돈을 바꾸어 주는 상에서,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온 어느 유대인이 바가지를 썼다고 우겨댐으로써 맹렬하고 격한 다툼이 일어났으며, 동시에 백 마리 정도나 되는 황소 떼가 소리를 지르면서 한 가축우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예수가 잠시 멈춰서, 상업을 하고 혼란에 빠진 이 장면을 조용하게 그러나 깊은 생각으로 숙고하는 동안, 가까이에서 한때 이론에서 대화한 적이 있는 한 단순한-마음의 갈릴리 사람이, 거드름피우면서 우월함을 내보이려는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이리저리 떠밀리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이 모든 것들이 병합되어, 예수의 혼속에 주기적으로 솟아오르는 분개한 감정의 하나를 산출하였다.

173:1.7 (1890.2) 예수가 가르치는 강단에서 내려와서, 뜰을 가로질러 가축을 몰고 가는 사람에게 가서, 끈으로 된 채찍을 빼앗아서 그 동물들을 성전에서 신속히 몰아내셨을 때, 곧 이어서 일어날 일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하였던, 가까이에서 있던 사도들은 매우 놀랐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성전 뜰에 모여서 놀라며 바라보고 있는 수 천 명의 사람들 앞을 지나, 가장 먼 가축우리로 장엄하게 걸어가셔서 모든 우리의 문들을 열고 갇혀있는 모든 동물들을 몰아내셨다. 이 때, 모여 있던 순례자들은 흥분하여,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매장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엎기

시작하였다. 5분도 채 안되어서 모든 거래행위들은 성전에서 깨끗이 사라졌다. 이 때, 가까이에 있던 로마인 호위병들이 나타났으며, 모두 조용해지고, 군중들은 다시 질서를 되찾았다; 예수는 단상(壇上)으로 돌아와서 군중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였다: "너희는 오늘 '내 집은 모든 나라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야 하겠으나, 너희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성서에 쓰여 있는 그것을 목격하였다."

173:1.8 (1890.3) 그러나 그가 다른 말을 입 밖에 내기도 전에, 모인 큰 군중이 찬양하는 소리를 터트렸고, 그리고 당장에 젊은이들의 무리가, 신성을 모독하고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을 거룩한 성전에서 쫓아낸 것을 치하하는 감사의 찬양을 노래하려고, 군중 속으로부터 앞으로 나섰다. 이 때, 어떤 사제들이 그곳에 도착하였으며, 그 중의 하나가 예수께 "레위인의 자녀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 들립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主)는, "너희가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찬양이 완전해졌다'는 것을 결코 읽어보지 못했느냐?"고 답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루 종일, 예수가 가르치시는 동안 사람들이 늘어서서 마련한, 파수들이 모든

반원모양의 통로를 지키고 섰고, 누구든지 빈 그릇일지라도 무엇을 들고는 성전 뜰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173:1.9 (1890.4) 이러한 일을 들은 우두머리 사제들과 사두개인들은 말문이 막혀버렸다. 주(主)를 두려워하는 만큼 점점 더 확고하게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은 그가 신성모독의 악덕상인들을 몰아내는 일에 이제는 공공연히 동조하는 군중들이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죽여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다. 이 날은 하루 종일 성전 뜰에 고요와 평화가 넘쳤으며,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말씀에 글자그대로 단단히 매달려 있었다.

173:1.10 (1890.5) 예수의 이러한 놀라운 행동은 그의 사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었다. 그들은 주(主)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예상 밖의 움직임에 너무나 깜짝 놀라서 전체 에피소드에 두루, 단상(壇上) 주변에 내내 몰려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성전 청결을 돕기 위해서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 이러한 장관을 이루는 사건이, 성문을 통과하는 떠들썩한 행진이 끝나면서 예수가

성전에 승리한 모습으로 도착하였을 때 발생했더라면, 그들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자, 그들은 동참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

173:1.11 (1891.1) 이러한 성전 청결은 종교의 상업화된 실천 관행에 대한 주(主)의 태도는 물론, 가난한자들과 무식한 자들의 경비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일과 모든 부당성에 대한 그의 증오심을 밝히 드러낸 것이다. 또한 이 에피소드는, 정치, 재정, 또는 성직의 권력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옳지 않은 소수 무리들의 부당하고 노예화하려는 악습에 대항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무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력을 이용하는 것을, 예수가 거절하지 않으시는 듯한 태도를 실증 하였다. 자아-보호나 또는 자신들의 훌륭한 일생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일에 자신들의 이상주의 때문에 무력에 의존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려고, 눈치 빠르고 사악하며 술책을 꾸미는 자들이 자신들을 위해 조직을 이루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주(主)의 권한에 도전함

173:2.1 (1891.2)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였던 일요일에는 유대인 영도자들이 너무 위압되어 예수를 체포하는 일을 자제하였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전을 청결하게 한 이러한 시선을 집중시키는 사건도 주(主)의 체포를 연기시키게 한 계기가 되었다. 유대인 통치자들은 매일같이 점점 더 확고하게 그를 죽이고자 결심하였지만, 두 가지의 두려움으로 인한 정신적 혼란이 결행 시간을 연기하도록 작용하였다. 우두머리 사제들과 서기관들은 군중들이 분개심으로 광포해져서 자신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공개적으로 체포하는 것을 꺼렸다; 또한 민중들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로마 병사들이 소집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였다.

173:2.2 (1891.3) 산헤드린의 정오 회의에서, 그 어떤 사람도 이 모임에 주(主)의 친구로 참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하루빨리 해치워야한다는 안이 만장일치로 결의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 어떻게 체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마침내 다섯 개의 무리들을 뽑아 사람들 속에 보내어, 그의 가르침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든지 아니면 그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망신을 주자는 안에 모두 동의하였다.

따라서 두 시쯤 되어 예수가 “아들관계의 자유”에 대해 강연을 막 시작하였을 때, 이들 이스라엘 장로들의 한 집단이 예수 가까이로 나오면서, 상습적인 태도로서 그를 중단시키며 질문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던 말입니까?”

173:2.3 (1891.4) 가르치려 하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최근에 성전에서 모든 장사를 쫓아내신 일과 관련하여, 예수의 특징이었던 색다른 방법의 일을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성전 통치자들과 유대 산헤드린의 임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모두 합당한 일이었다. 이들 상인과 환전상들은 모두 최고 통치자들의 직접적인 허락에 따라 운영하였고, 그들의 수입 일부는 곧바로 성전 금고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권한이라는 말이 모든 유대인들의 표어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 선지자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켜 왔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권한 없이, 랍비 학교에서 마땅한 교육을 받음도 없이, 그리고 뒤이어 산헤드린에 의해 정식으로 임명받음도 없이 감히 주제넘게 용감하게 가르치려 했기 때문이었다. 대중을 위해 감히 가르치면서 이러한 권한이 없다는 것은, 주제넘을 정도로 무식하거나 또는 공공연한

반역 행위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이때 당시에는 오직 산헤드린만이 장로나 교사들을 임명할 수 있었고, 그러한 예식은 이미 그 전에 그렇게 임명받은 사람들이 적어도 셋 이상의 현존이 있는 장소에서 거행되어야만 했다. 그러한 임명식이 교사에게 “랍비”라는 칭호를 주었고, 또한 그에게 “판결해 달라고 그에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맺고 풀어주는” 재판관으로 활동하도록 자격으로 분별화하였다.

173:2.4 (1892.1) 성전의 통치자들은 예수께 그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에 도전하면서 이 날 오후 시간에, 그 앞에 나선 것이었다. 예수는 이들이 바로, 가르침에 대한 그의 권한이 사탄으로부터 왔고, 그가 행한 모든 기적이 귀신들의 영주에서의 힘에 의해 된 것이라고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가르쳐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아셨다. 그러므로 주(主)는 그들에게 질문함으로서 그들의 물음에 대한 그의 답변을 시작하였다. 예수는 말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만일 너희가 내게 대답한다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요한이 자기 권한을 하늘로부터 받았느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받았느냐?”

173:2.5 (1892.2) 질문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한 쪽으로 물러가
어떻게 대답하여야 좋을지를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였다.
그들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를 무안하게 만들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성전 뜰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 자신이 혼동에 빠진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는 예수께 돌아와서,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
우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더욱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들이
주(主)께 이렇게 대답하였던 이유는, 그들이 의논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너희가 왜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면서, 아마도 그가 그의 권한을
요한에게서 받아들였다고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대답하면, 군중들 대부분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으므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신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교사들과 영도자들은 요한의 임무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고 (또는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예수는

그들을 내려다보시면서,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였다.

173:2.6 (1892.3) 예수는 자신의 권한을 위하여 요한에게 간청하고자 한 적이 없었다; 요한도 산헤드린의 임명을 받은 적이 없었다. 예수의 권한은 자신 속에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영원한 최극위 속에 있었던 것이다.

173:2.7 (1892.4) 예수는 반대자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다루시면서, 질문을 회피한 것은 아니었다. 우선, 그가 교묘하게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는 땃땃치 못한 일을 저지르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예수는 자신의 적일지라도 공평치 못하게 억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신 적이 없었다. 겉으로는 적당히 둘러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임무에 숨겨져 있는 권한을 모든 듣는 자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그가 귀신들의 영주의 권한으로 일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수는 하늘에 계신 자기 아버지의 힘과 권한으로써 가르치고 행한다고 반복하여 주장하였다. 이 유대 영도자들은 그가 산헤드린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교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의 대답 속에서 요한으로부터의 권한을 주장하지 않으신 반면,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자신의 적들의 노력이 그들 자신에게 작용되어 되돌아가고, 그들의 체면이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눈앞에서 더욱 망쳐진 것을 짐작하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만족시켰다.

173:2.8 (1892.5) 그리고 자신의 반대자들을 다루는 바로 이러한 주(主)의 재능이야말로 그들이 그를 그토록 두렵게 만든 것이었다. 그들은 그 날 더 이상의 질문을 시도하지 않았다; 자기들끼리 더 상의하려고 물러갔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대 통치자들의 질문들 속에서 부정직함과 불성실을 재빨리 간파하였다. 서민들조차도 주(主)의 도덕적인 장엄과, 그의 적들의 의도적인 위선을 분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이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바리새인의 편에 합세하여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 때 산헤드린에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다.

제 3 장. 두 아들의 비유

173:3.1 (1893.1)

트집쟁이 바리새인들이 침묵으로 예수 앞에 서 있을 때, 그는 그들을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했다; “너희가 요한의 임무를 의심하고 사람의 아들의 가르침과 일에 일제히 배척하니, 내가 말하는 한 비유에 귀를 기울여 들어라: 어떤 위대하고 존중받는 지주(地主)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많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아들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한 아들에게 와서, ‘아들아, 오늘은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경솔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그곳으로 갔다. 또한 그가 큰아들을 찾아,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들아, 내 포도원에 가서 일 하거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위선적이고 신실치 못한 이 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떠나자, 그는 가지 않았다. 너희에게 묻겠는데,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실제로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냐?”

173:3.2 (1893.2)

사람들이 한결같이, “첫 번째 아들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가 말하였다: “바로 그렇다; 이제 내가 선언하겠는데, 세리들과 창기들이 비록 뉘우치라는 부름을 거절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길에서의 실수를 알아보고 그리고는 계속하여 하느님의 왕국에 너희보다 앞서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는 것에 크게 자처하고 있는 너희는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 요한을 믿은 것은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세리들과 창기들 이었다; 너희들 아무도 나의 가르침을 믿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나의 말을 기쁘게 듣는다.”

173:3.3 (1893.3) 예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개인적으로 경멸하지 않았다. 그가 망신을 주시고자 했던 것은 가르침과 실천에 대한 그들의 체계였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적의를 품지 않았지만, 여기에 새롭고 살아있는 영의 종교와 형식과 전통 그리고 권한으로 가득 찬 옛 종교와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충돌이 발생하고 있었다.

173:3.4 (1893.4) 열 두 사도들은 시종일관 주(主)의 곁에 서 있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이러한 과정에 끼어들지 않았다. 열 두 사도들은 예수가 육신 속에서의 삶을 마무리 지으시는 기간 동안의 사건들에 대하여 각자 자기

나름대로 반응하였으나, 유월절 주간 동안 대중을 위한 가르침과 설교를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주(主)의 명령에는 모두 순종하였다.

제 4 장. 집을 비운 주인의 비유

173:4.1 (1893.5) 여러 가지 질문으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였던 우두머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더 상의하기 위하여 물러간 후에, 주(主)는 듣고 있는 군중들에게로 시선을 돌리시고, 다른 비유를 말씀하였다:

173:4.2 (1893.6) “어느 선량한 집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을 꾸미게 되었다. 그는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짜기 위한 구덩이를 파고, 파수자들을 위한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로 먼 여행을 떠나 있는 동안 이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맡겼다. 열매 맺는 계절이 다가오자, 세를 받기 위하여 하인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끼리 상의하여, 주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과실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대신에, 하인들을 공격하여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에게는 돌을 던졌으며, 나머지는 모두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이 사악한 소작인들을 다루기 위하여 더 신임하는 다른 하인들을 보냈으나, 그들은 이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모욕을 주었다. 그러자 주인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청지기를 보냈는데, 그들은 그를 죽였다. 그는 여전히 참고 인내하면서, 다른 많은 하인들을 보냈지만,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들은 하인들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였고, 그 집주인은 이렇게 대접받자, 이 배은망덕한 소작인들을 다루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들이 나의 하인들은 학대하였지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은 틀림없이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는 사악한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의논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가서 그를 죽이자. 그리하면 그 유산이 우리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를 붙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서, 그를 죽였다. 그들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배척하고 죽였는지를 포도원 주인이 들었을 때, 이 배은망덕하고 사악한 소작인들에게 그가 어떻게 할 것 같으냐?"

173:4.3 (1894.1) 그리고 사람들은 이 비유와 예수의 질문을 들었을 때, "그는 그 파렴치한 사람들을 죽이고, 제 때에 실과를

주인에게 바칠 다른 정직한 농부들에게 자기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들 중의 일부는 이 비유가 유대 나라와 선지자들에 대한 그들의 대접, 그리고 지금 예수와 왕국 복음을 거부하려는 태도와 관련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슬픔에 잠겨서, “하느님, 우리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173:4.4 (1894.2) 예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무리가 군중 속을 헤치면서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가까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배척하였는지를 너희가 알고 있으며, 사람의 아들을 거부하기로 너희 가슴속에 작정한 것도 너희가 잘 알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가까이에서 있는 사제들과 장로들을 자세히 둘러보시면서, 예수는 말씀하였다. “건축자들이 쓰기를 거절한 돌을,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자 주춧돌로 삼았다는 말씀을 성서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너희에게 경고하겠는데, 만일 너희가 이 복음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제 머지않아 하느님의 왕국을 너희로부터 빼앗아서, 복된 소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영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돌에는 하나의 신비가 있으니, 누구라도 그 위에 떨어지고 한편으로 그로서 그가 가루가 되었다 해도 그는 구원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라도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그는 먼지로 가루가 될 것이고 그의 재는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173:4.5 (1894.3)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을 듣자, 예수가 자기들과 그 밖의 유대 영도자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납득했다. 그들은 당장 그 자리에서 그를 붙잡고 싶었으나, 군중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主)의 말씀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서 그를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자기들끼리 더 상의하려고 물러갔다. 그리고 그 날 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다음 날 그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에 손을 잡았다.

제 5 장. 결혼 잔치 비유

173:5.1 (1894.4) 서기관들과 통치자들이 물러간 후에, 예수는 모인 군중들을 다시 돌아보시면서 혼인 잔치 비유를 이야기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였다:

173:5.2 (1894.5)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를 마련하고 먼저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메신저들을 보내어, '결혼 잔치가 왕궁에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어떤 왕과 같다. 그런데 전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하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오기를 거부하였다. 자신의 초대를 거절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왕은, 다른 하인들과 메신저들을 보내면서, '초대된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리로 와서 준비된 나의 만찬을 보라고 말하라. 나의 소들과 살찐 짐승들을 잡았고, 앞으로 있을 내 아들의 결혼을 축하할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자들은 왕의 초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혹은 농장으로 혹은 그릇을 굽는 곳으로 혹은 작업장으로, 각기 자기 일터로 가버렸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왕의 초청을 경하게 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메신저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그들 중의 일부는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 왕은 자신이 선택한 손님들, 심지어는 첫 번째 초청에 응하여 혼인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하였던 사람들까지도, 마지막으로 가서는 그의 초대를 거절하고 반역을 일으켜, 자신이 선택한 메신저들을 공격하고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극도로 진노하였다. 그러자 모욕을 당한 이 왕은 자신의

집단들과 동맹국 집단들에게 명하여 반란을 일으킨 살인자들을 괴멸시키고 그들의 도시를 불사르도록 하였다.

173:5.3 (1895.1) “자신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응징을 마친 후, 결혼 잔치를 위해 다른 날을 정하고 메신저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에 맨 먼저 초대받은 자들은 합당치 않은 자들이었으니; 지금 즉시 거리들과 큰길들 그리고 도시 밖으로라도 가서 이방인일지라도 눈에 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이 하인들은 큰길들과 시골 구석구석까지 다녀가며, 발견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 선량한 자들이나 불량한 자들, 부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모아서, 마침내 혼인 자리가 기꺼이 응하는 손님들로 가득 찼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왕은 자기 손님들을 둘러보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왕은 모든 손님들에게 혼인 예복을 공짜로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적하며 말했다; ‘친구여, 이러한 때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나의 접대실에 들어왔단 말이냐?’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이 사람은 유구무언이었다. 그러자 왕은 하인들에게 ‘경솔한 이

손님을 밖으로 쫓아내어, 나의 환대를 거절하고 나의 초청을 거절한 모든 다른 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하라. 나의 초청을 기쁘게 받고, 모두에게 공짜로 제공되는 손님용 예복을 입음으로써 내게 경의를 표하는 자들이 아니면, 결코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명하였다.”

173:5.4 (1895.2) 이 비유를 마친 후에, 예수가 군중을 흠어 보내려고 할 때, 동정심 많은 어떤 신자가 군중들 사이를 헤치면서 그에게 나아와 물었다: “그렇지만, 주(主)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왕의 초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신 주(主)는, “오직 한 가지 표적만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였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몸을 가리키시면서, 계속하여 말씀하기를,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거의 오십 년이나 걸려서 이 성전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무너뜨릴 것이고 사흘 안에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도들조차도 이 말씀의 의의(意義)를

깨닫지 못하였으나, 그의 부활 후에서야 그가 말씀하였던 것을 상기하였다.

173:5.5 (1895.3) 이 날 오후 4 시 경, 예수는 그의 사도들을 손짓으로 부르시고, 성전을 떠나 저녁 식사와 하룻밤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베다니로 가고자함을 알려 주었다. 올리브 산으로 오르는 길에서, 예수는 남은 유월절 주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내일 성 근처에 야영지를 설치하라고 안드레와 빌립 그리고 도마에게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서, 그들은 다음 날 아침, 겿세마네의 대중용 야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베다니의 시몬이 소유하고 있는 작은 땅에 있는 언덕 골짜기에 그들의 천막을 설치하였다.

173:5.6 (1896.1) 월요일 밤에 올리브 산기슭을 올라가는 유대인 일행들은 모두 다시 침묵 속에 있었다. 이 열 두 사람들은 전과는 달리,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아침 일찍 벌어졌던 극적인 성전 청결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주(主)가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의 강대한 힘을 현시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오후 내내 있었던 사건들은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 예수의

가르침이 확실하게 거부되는 한심한 장면만을 그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사도들은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극도의 불확실함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었다. 방금 지나간 날에 있었던 사건들과 절박한 운명 사이에는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 그들 모두는 어떤 중대한 일이 곧 일어나리라고 느꼈지만, 무엇이 일어날지는 상상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여러 곳으로 흩어졌지만,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알패오 쌍둥이 형제들마저도 주(主)의 일생이 최종적인 최고점을 향하여 빨리 움직이는 사건들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깨우치게 되었다.

제 174 편 화요일 아침 성전에서

174:0.1 (1897.1) 화요일 아침 7시경에 예수는 사도들, 여자 대원들, 그리고 다른 이십 여명의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을 시몬의 집에서 만났다. 그는 이 때 나사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으며, 그로 하여금 페레아에 있는 필라델피아로의 피신을 결정하도록 하는 지시를 내리셨으며, 나사로는 후에 그곳에 본부를 두고 퍼져나간 선교 운동에 가담하였다. 또한 예수는 나이가 많은 시몬에게도 작별을

고하였고, 여자 대원들에게 마지막 충고를 하였으며, 그들에게 정식으로 강론한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174:0.2 (1897.2) 그는 이날 아침 열두 사도들에게 각각 개인적으로 인사하였다. 그는 안드레에게 “곧 다가올 사건들로 인하여 당황하지 않도록 하여라. 형제들을 굳건하게 지키고, 기가 꺾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조심하여라.”라고 말씀하였다. 그는 베드로에게 “육신의 무력이나, 쇠로 된 무기위에 네 믿음을 머물게 하지 마라. 영원한 바위의 그 영적 기초 위에 너 자신을 세우도록 하여라.”라고 말씀하였다. 그는 야고보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때문에 비틀거리지 않도록 해라. 신앙에 굳게 서라, 그러면 네가 믿는 것의 실체를 곧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였다. 그는 요한에게는 “너그러움을 갖도록 하고; 너의 적들이라도 사랑하라; 관용으로 있으라,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너를 신뢰하였던 것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였다. 그는 나다니엘에게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너의 신앙을 굳게 지켜라; 왕국 대사로서의 임무에 진실하라.”고 말씀하였다. 그는 빌립에게는 “곧 다가올 일들 때문에 동요하지 마라.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헌신의 맹세를

충성되게 이루도록 하여라.”라고 말씀하였다. 그는 마태에게는 “너를 왕국에 받아들여주신 그 자비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 너에게 약속된 영원한 보상을 어떤 사람도 속임으로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필사자 본성의 성향들을 잘 견뎌온 것처럼, 기꺼운 마음으로 확고하게 있으라.”라고 말씀하였다. 그는 도마에게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제부터는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내가 시작한 그 일을 내가 완결할 수 있다는 것과, 나의 모든 신실한 대사들이 결국에는 왕국 너머에서 나를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다. 그는 알패오 쌍둥이들에게는 “너희가 납득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해라. 너희 가슴속에 있는 감동에 충실하고, 위대한 사람이나 태도가 변화하는 민중들에 의지하지 마라. 형제들을 떠나지 마라.”라고 말씀하였다. 그리고 그는 시몬 젤로떼에게는 “시몬아, 네가 실망으로 짓밟혀질지도 모르지만, 네 영은 네게 닥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일어날 것이다. 내게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내 영이 네게 가르쳐줄 것이다. 영의 참된 실체를 추구하고, 비-실제이며 물질적 그림자에 유혹되는 것을 그만두라.”라고 말씀하였다. 그리고 그는

가롯 유다에게 “유다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또한 네가 형제들을 사랑할 것을 기도하였다. 올바르게 행하는 것에 지치지 말라; 아침의 매끄러운 길과 조롱의 독화살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였다.

174:0.3 (1897.3) 이 인사들을 마친 후에, 예수는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났고, 다른 사도들은 주(主)가 육체로 계시는 남은 기간 동안 본부로 사용할, 그리고 그 날 밤을 지낼 겟세마네 야영지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는 올리브 산기슭을 반쯤 내려가시다가 잠시 멈추어 서시고 네 사도들과 함께 한 시간이 넘도록 이야기하였다.

제 1 장. 신성한 용서

174:1.1 (1898.1) 베드로와 야고보는 죄를 용서해 주는 일에 관한 주(主)의 가르침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으로 지난 며칠 동안 토론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문제를 예수께 물어보기로 합의하였고, 베드로는 이때를 주(主)의 조언을 확실하게 하는 적절한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따라서 시몬 베드로는 찬미와 경배의 차이에 관한 대화에 끼어들어서 물었다: “주(主)여, 야고보와 저는, 죄를 용서하는 일에

관한 당신의 가르침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아버지께 요청하기도 전에 그가 이미 우리를 용서한다는 것을 당신께서 가르치셨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회개와 고백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옳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174:1.2 (1898.2) 예수는 잠시 침묵한 후, 네 사도들 모두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시고 나서 대답하였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창조체와 창조자 사이, 사람과 하느님 사이의 친밀하고도 사랑 넘치는 관계에 대한 본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때로는 실수를 범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현명한 부모들이 갖는 동정심을 너희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지능적이고 애정 깊은 부모들이 보통의 정상적인 자녀에게 용서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결코 있어야 할 것인지는 참으로 의심스럽다. 사랑의 태도가 동반된 납득하는 관계는, 부모에 의한 용서로 자녀가 하는 회개를 나중에 다시 조절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 모든 저들 불화를 실질적으로 막아준다.

174:1.3 (1898.3) "아버지의 하나의 부분이 자녀 안에 살아있다.

아버지는 자녀-부모의 관계에 연결된 모든 일들의 압득에서 우선권과 우월성을 누린다. 부모는 보다 진보된 어버이의 성숙성, 나이 많은 부모의 원숙한 체험에 비추어 자녀의 미숙함을 볼 수 있다. 지상의 자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경우에, 신성한 부모는 사랑으로 압득하는 수용능력과 동정심에서의 무한성과 신성을 소유하고 계신다. 신성한 용서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압득 속에, 자녀의 그릇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에 관여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의 완전한 지식 속에 본래부터 있으며 양도될 수 없다. 신성한 공의는 영원히 공정하기에, 그토록 압득하는 자비를 어김없이 체현하고 있다.

174:1.4 (1898.4)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동료들의 내적인 충동을

압득할 때,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사랑할 때는, 너희는 이미 그들을 용서한 것이다. 사람의 본성을 압득하고 그리고 명백한 그릇된 행동을 용서하는 이 수용능력은 하느님과-같음이다. 만일 너희가 지혜로운 부모라면, 이것이 그 길이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너희 자녀들을 압득할 것이고 사랑할 것이고, 일시적인

오해가 너희를 명백하게 갈라 놓고 있는 그러한 때에도, 그들을 용서할 그러한 길이다. 자녀-아버지 관계의 깊이를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아직도 미성숙한 자녀는, 아버지의 충분한 승인으로부터 죄의식을 동반한 분리 느낌을 자주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참된 아버지는 결코 그러한 그 어떤 분리도 의식하지 못한다. 죄는 하나의 창조체의 의식에서의 체험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의식에서의 하나의 부분이 아니다.

174:1.5 (1898.5) “너희 동료들 용서하려는 기꺼운 마음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무능력함은 너희의 미숙함을 가늠하고, 그리고 어른다운 동정심, 납득 그리고 사랑을 달성하는 데에 대한 너희의 실패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너희 자녀와 너희 동료들의 참된 소망과 내적 본성을 알지 못하는 너희의 무지함에 정비례하여, 너희는 그만큼 원한을 품고 그리고 양갚음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사랑이란 생명의 신성하고 내적인 충동이 밖으로 나와 일하는 것이다. 그것은 납득함에 기초를 두며, 이기심이 없는 봉사로서 양육되고, 지혜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제 2 장. 유대 통치자들의 질문들

174:2.1 (1899.1)

월요일 저녁,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중에서 선택된 오십여 명의 영도자들과 산헤드린 회의가 거기에서 열리고 있었다. 이 모임에서 일치된 의견은, 예수가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를 공개적으로 체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를 체포하여 법정으로 데려오기 전에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자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따라서 여러 무리의 유식한 사람들이 선정되어 다음 날 아침 성전에 가서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든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그가 당황하게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마침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심지어는 헤롯 당원들까지도, 유월절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망신시키자는 이 작업에 모두 연합하였다.

174:2.2 (1899.2)

화요일 아침, 예수가 성전 뜰에 도착하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여 몇 마디 말씀도 하기 전에, 이러한 목적을 위해 미리 연습하였던, 학원들로부터 온 젊은 학생들 한 무리가 앞으로 나아왔으며 그들 중의 대변자가 예수께 말했다; “주(主)여, 우리는 당신이 의로운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고, 당신이 진리의 길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시며, 사람들을 차별대우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학생일 따름이고, 저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진실을 알고자 하는데; 저희들에게 어려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저에게 세를 내는 것이 옳습니까? 저희가 내야합니까? 아니면 내지 않아야합니까?" 예수는 그들의 위선과 잔꾀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했다; "너희는 왜 이런 것으로 나를 시험하고자 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그 돈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대답하겠다."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건네주자, 그것을 살펴보시고서 말씀하기를, "이 동전 뒤에 있는 그림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시저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는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쳐라."라고 대답하였다.

174:2.3 (1899.3) 그가 이렇게 대답하자, 이 젊은 서기관들과, 그들과 한 패인 헤롯 당원들은 그의 현존으로부터 떠났으며,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사두개인들까지도 그들의 실패를 즐거워하였다.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였던 그 젊은이들도 주(主)의 예상치 못하였던 총명성있는 답변에 매우 경탄하였다.

174:2.4 (1899.4) 통치자들은 하루 전 날 성직(聖職)에 관련된 권한의 문제를 가지고 군중들 앞에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였다가 실패하였으며, 이제는 세속적인 권한을 손상시킬만한 문제에 그를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이 때 빌라도와 헤롯은 모두 예루살렘에 있었으며, 예수의 적들은 그것을 알고서, 만일 그가 감히 시저에게 세를 내는 것을 거부하도록 대답하면, 즉시 로마 당국자들에게 가서 민중을 선동한다는 죄를 씌우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만일 여러 가지 말로써 그 세금을 내도록 충고한다면, 그러한 말이 유대인 청중들의 국가적인 자부심을 크게 손상시킬 것이라는 것을 재빨리 이용하여, 군중들의 호의와 선한 뜻을 이간시키고자 하였다.

174:2.5 (1899.5) 예수의 적들의 이러한 모든 의도들이 실패한 것은, “화폐의 권리는 세금을 부과하는 권리를 수반한다.”는 것이 이방인들 속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길잡이가 되도록 만든 산헤드린의 잘 알려진 판정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의 함정을 피하였다. 그들의 질문에 “하지 마라.”라는 대답은 반란을 선동한 것과 마찬가지로 되고; “하라”고 대답하면 당시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민족주의 정서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주(主)는 질문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중적으로 대답하는 지혜를 동원하였을 뿐이었다. 예수는 결코 회피한 적이 없으며,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자들을 항상 현명하게 다루었다.

제 3 장. 사두개인들과 부활

174:3.1 (1900.1) 예수가 가르침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무리가 앞으로 나와서 질문하였으며, 이 사람들은 지식 있고 교활한 사두개인들이었다. 그들의 대변자가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했다; “주(主)여, 모세의 율법에, 만일 결혼한 어떤 남자가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해 자손을 낳도록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여섯 명의 동생을 둔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다음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였지만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곧 죽었습니다. 두 번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였으나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똑같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여섯 명의 동생들이 모두 그 여인을 취하였지만 모두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모두 죽고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일곱 형제가 모두 그녀를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174:3.2 (1900.2) 이러한 일은 실제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질문에 진지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더군다나 죽은 형제를 위하여 다른 형제들이 자식을 낳으려하는 이런 실천 관행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속에서 실제적으로는 사문화(死文化)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해를 끼치려는 그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하였다. 그는 말씀했다; “너희들 모두는 성서도 알지 못하고 하느님의 살게 하는 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러한 질문을 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갈 수 있지만, 다가오는 세상을 달성하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의로움의 부활을 거치면서,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늘의 천사와 같으며,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들 부활된 사람들은 영원한 하느님의 아들들이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진보과정 안으로 부활한 빛의 자녀들이다. 너희 아버지 모세도 불타는 가시덤불을 체험함으로써 이것을

깨달았으며,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하여, 모세와 마찬가지로, 나도 나의 아버지는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느님이신 것을 선포한다. 너희 모두는 그 안에서 살고, 자식을 낳으며, 너희의 필사자 실존을 누리는 것이다."

174:3.3 (1900.3) 예수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시자, 사두개인들은 물러갔지만, 어떤 바리새인들은 자제심을 잃고서,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主)여, 믿지 아니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잘 대답하셨습니다."라고 외치기까지 하였다. 사두개인들은 감히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못하였으며, 보통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 속에 있는 지혜를 신기하게 여겼다.

174:3.4 (1900.4) 예수가 사두개인들을 대하면서 모세만을 언급한 것은, 이 종교적인 정치 분파가 모세의 경전들이라고 불리는 다섯 권의 책들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가르침들을 신조적인 독단론의 기초로 받아들여 하지 않았다. 주(主)는 자신의 대답 속에서, 부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필사

창조체들이 생존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하였지만, 인간의 몸체가 그대로 살아난다는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듯한 말씀은 하지 않았다. 예수가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은,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이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174:3.5 (1900.5) 사두개인들은 공개적인 박해가 대중들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동정심을 더욱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로 하여금 조롱을 당하여 위축되게 하고자 하였다.

제 4 장. 큰 계명

174:4.1 (1901.1) 또 다른 무리의 사두개인들이 천사들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를 혼란시키도록 지시를 받았었지만, 부활과 관련된 질문들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였던 자기 동료들의 숙명을 보자, 그들은 매우 지혜롭게 처신하여 침묵을 지켰으며; 질문하지 않고 물러갔다. 혼란시키는 이러한 질문을 하루 종일 계속하는 것이 연관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의 미리 계획된 술책이었으며, 그들은 이렇게 하여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시키고 동시에 사람들을 동요케 하는 그의 가르침들을 선포할 기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다.

174:4.2 (1901.2) 그 때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이 앞으로 나와서 공격적인 질문을 하였으며, 대변자가 예수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주(主)여, 저는 율법사입니다. 큰 계명에 대하여 당신의 견해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수는 대답했다; “계명은 오직 하나밖에 없고, 그것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가장 큰 것이데, 그 계명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님은 우리의 하느님이시요, 주님(主)은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가슴과 혼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 너의 하느님을 사랑할 것 이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첫째 되는 것이요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와 같은 것이다;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것이 분명한데, 그것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은 없으며; 이 두 계명들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다.”

174:4.3 (1901.3) 예수가 유대 종교의 가장 높은 개념에 입각하여 대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인 군중들 앞에서 지혜롭게

대답하였다는 것을 그 율법사가 알아차리고, 주(主)의 답변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주(主)여,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정말로 잘 대답하였다; 모든 가슴과 뜻과 힘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는 큰 계명이다; 이 큰 계명이 모든 번제물이나 희생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에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 율법사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들으신 예수는 그를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였다. “나의 친구여, 네가 하느님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174:4.4 (1901.4) 예수가 이 율법사에게 “왕국에서 멀지 않다”고 한 말씀은 사실이었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날 밤 그가 겐세마네 근처에 있는 주(主)의 야영지에 갔으며, 왕국 복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였고, 요시아에게 세례를 받은 후 아브너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174:4.5 (1901.5) 다른 두 세 무리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려고 왔었지만, 어떤 이들은 그 율법사에게

예수가 대답하는 것을 듣고 무력감을 느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그를 함정에 빠뜨릴 책임을 맡았던 모든 사람들이 실패한 것에 겁을 먹고 스스로 그만두었다. 이후로는 아무도 감히 공개적으로 그에게 질문하지 못하였다.

174:4,6 (1901.6) 정오 시간이 가까이 되었을 때, 더 이상의 질문이 나오지 않자, 예수는 가르침을 다시 시작하는 대신에,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에게 질문하고자 하였다. 예수는 말씀했다; “너희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으니,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는 해방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서기관 하나가 대답하였다.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가 다윗의 아들이야 아니냐에 대해서 사도들 사이에서조차도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가 아셨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였다. “만일 해방자가 정말로 다윗의 아들이라면, 너희가 다윗이 쓴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편에서, 그 자신이 영으로 말하기를 ‘주님이 내 주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적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만들기까지 너는 내 오른 편에 앉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만일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 불렀다면, 어떻게 그가 그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통치자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우두머리 사제들일지라도 이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하여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더 이상 품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가 그들에게 한 이 질문에 결코 대답하지 못하였으나, 주(主)가 죽으신 후에는 이 시편에 대한 해석을 메시아 대신에 아브라함에 대한 것이라고 바꿈으로써 곤란을 피하고자 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위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 이 작품의 저자가 다윗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궁지에서 빠져나가하고자 하였다.

174:4.7 (1902.1) 조금 전에는 사두개인들이 주(主)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한 것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좋아하였었지만; 지금은 바리새인들의 실패를 사두개인들이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경쟁심은 잠시뿐이었다;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들과 행동들을 멈추게 하려고 연합된 노력 안에서, 자신들의 전통적인 견해 차이들을 곧 잊어버렸다. 그러나 이 모든 체험들을 통하여 보통 사람들은 기쁘게 그의 말씀을 들었다.

제 5 장. 호기심을 보이는 그리스인

정오 무렵에, 빌립이 겿세마네 근처에 그 날 설치된 새 야영지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고 있을 때, 낯선 사람들, 알렉산드리아와 아덴 그리고 로마에서 온 믿는 그리스인들 무리들 중에서 대표자 한 사람이 말을 걸어왔으며, 그 대변자는 이 사도에게 말했다; “당신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을 가리켜 주었으므로; 우리가 당신께 왔는데, 선생님, 당신의 주(主)이신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빌립은 시장 바닥에서 눈에 띄는 이 그리스인들이 질문하는 것에 매우 놀랐으며, 예수가 열 두 사도들 모두에게 유월절 주간 동안에는 어떤 대중을 위한 가르침도 하지 말라고 너무도 확실하게 지시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지 당황하였다. 또한 그는 이 사람들이 외국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혼란케 되었다. 만일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거나 아니면 가까이에 사는 잘 아는 이방인들이었다면, 그가 눈에 댈 정도로 그렇게 찢찢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취한 행동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이 그리스인들에게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달라고 하였다. 그가 급히 사라지자 그들은 그가 예수를 찾으러 간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체 안에서

그는 안드레와 다른 사도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요셉의 집으로 급히 달려갔으며; 안드레를 밖으로 불러내어, 그가 왜 왔는지를 설명하였고, 그 다음에는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인들에게 안드레와 함께 돌아왔다.

174:5.2 (1902.3) 빌립은 필요한 것들을 다 구입하였기 때문에, 안드레와 그 그리스인들과 함께 요셉의 집으로 돌아왔고, 예수는 그들을 받아들였다; 그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모인 사도들과 여러 명의 수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동안 그들은 가까이에 앉아 있었다. 예수는 말씀했다:

174:5.3 (1902.4) “나의 아버지는 사람 자녀들에게 자신의 사랑가득한-친절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내가 처음 만난 그들은 나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다. 정말로 너희들 대부분은 스스로 나의 복음을 믿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그들의 영도자들은 나를 거부하려 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여 나를 보내신 그를 거부하려고 한다. 나는 이 민족을 구원할 복음을 아무 대가(代價) 없이 선포하였다; 영 속에서 더욱 풍성한 기쁨과 해방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아들 됨의 관계를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는 공포에 가득한 이 사람
아들들에게 많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였다. 그러나
이사야가 '주님, 누가 우리의 가르침들을 믿었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주님은 계시되었습니까?'라고 쓴 그의
글에서 이 민족에 대해 잘 말하였다. 나의 민족의
영도자들은 정말로 고의로 자신의 눈을 멀게 하여 보지
않으려고 하며, 가슴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믿지도 않고
구원받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아버지의 영원한 구원을 받눈 자가 될 까하여 그들의 믿지
않음을 치료하려고 애를 썼다. 모두 것이 실패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알며; 너희들 중에 일부는 내가 전한
말을 정말로 믿어 왔다. 지금 이 방 안에는 한 때
산헤드린의 회원이었던 사람들, 또는 국가 기관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와 있지만, 너희들 중에는 아직도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서 진리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 중에는 하느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영광을 더 사랑하도록 유혹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내가, 나와 그토록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내 옆에서 그토록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그들의 안전과 충성심을 염려하기 때문에,
부득이 용서할 수밖에 없다.

174:5.4 (1903.1) “이 방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거의 같은
숫자로 모여 있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왕국의 관련사들에 관해 가르치는 처음이자
마지막의 무리들이 되도록 너희에게 말하려고 한다.”

174:5.5 (1903.2) 이 그리스인들은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참여했던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월요일 저녁에
니고데모의 집에서 회의를 가졌는데, 그것은 다음 날
새벽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들 중에 삼십 명은 왕국에
들어가도록 선정되었다.

174:5.6 (1903.3) 이 때 그들 앞에 서신 예수는 한 섭리시대가
 끝나고 다음 섭리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였다. 주(主)는 그 그리스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였다:

174:5.7 (1903.4)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를 믿는 자이다. 너희가 나를 보는 것은, 오직
 사람의 아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도 보는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며, 나의 가르침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이방인들이 만일 내 말을 듣는다면, 너희가 생명의 말씀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진리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한 해방을 곧 얻게 될 것이다. 만일 내 고향 사람들, 유대인들이 나를 거부하고 나의 가르침들을 거절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려고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그들에게는 때가 이르면, 나의 아버지에 의해서 그리고 구원의 진리와 자비의 선물을 거절한 자들을 심판하라고 아버지가 임명하는 그들에 의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녀들에게 나타내도록 내게 지도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너희에게 신실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 모두는 꼭 기억해라. 그리고 세상에게 말하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지도한 이 말씀들은 신성한 진리의, 영속하는 자비의, 또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다.

174:5.8 (1903.5)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영화롭게 될 때가 이르렀음을 내가 유대인과 이방인 둘 모두에게 선포한다. 곡식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만 있겠지만; 만일 그것이 좋은 흙 속에서 죽으면,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너희들도 잘 알 것이다. 이기적으로 자기 생명만을 사랑하는 자는 위험에 처하여 그것을 잃게 되겠지만; 나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는 자는 땅에서 더욱 풍성한 실존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즐길 것이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따른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도,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또한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진실된 하인들이 될 것이다.

174:5.9 (1903.6)

“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으며, 내가 괴로운 심정이다. 나의 민족이 왕국을 단호히 거절하려는 것을 내가 알지만, 빛으로 향하는 길을 물어보려고 오늘 이곳에 온, 진리를 찾는 이들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기쁨을 내가 향유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내 가슴은 나의 민족을 위하여 아프며, 내 혼은 바로 내 앞에 놓인 것 때문에 몹시 산란하다. 내게 일어나려는 일을 미리 바라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하겠느냐? 아버지에게 이

끔찍한 때에서 구해 달라고 말해야 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이때까지 있었다. 오히려 나는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할 것이며, 너희도 이 말에 나와 함께하기를 기도할 것이다."

174:5.10 (1904.1)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을 때 세례 이전의 시절,** 그의 내주하는 개인성구현된 조절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고 그리고 그가 알아차리면서 멈춤에 따라, 이제 아버지를 대표하는 이 막강한 영이 나사렛 예수께 말하였다: "너의 증여 안에서 여러 번 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었으며, 내가 한 번 더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174:5.11 (1904.2) **모여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였지만, 주(主)가 말씀을 잠시 멈추신 것은 어떤 초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기 위한 것임을 그들도 잘 알 수 있었다. 그들 모두는 각자 그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천사가 그에게 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174:5.12 (1904.3) **그 후에** 예수는 말씀을 계속하였다: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일어났다.

아버지께서 나를 환영하시고 또 너희를 위한 나의 임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너희가 바로 앞에 있을 맹렬한 시련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용기를 얻을 필요가 있다. 세상을 깨우치고 인류를 자유롭게 하려는 우리들의 연합된 수고가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너희에게 확신시키고자 한다. 옛 질서는 스스로 심판에 이르고 있고; 이 세상의 영주는 내가 물리쳤고;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라간 후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부어 줄 그 영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174:5.13 (1904.4)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이르고자 하는 것은, 내가 만일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들어 올리면,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내 아버지께 대한 동료관계 안으로, 이끌 것이다. 너희는 해방자가 이 땅에 언제까지나 거하리라고 믿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것이며,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너희와 잠시 동안만 함께 있을 것이다; 생명의 빛이 이 어두운 세대 속에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님으로써 다가오는 어두움과 혼동이 너희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어두움 속에서 걷는 자는 어디로 가야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빛 가운데로 걸기로 선택한다면, 너희 모두는 정말로 자유롭게 된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제 너희 모두는 나와 함께 성전으로 가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 그리고 무지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내가 작별을 고할 것이다.

174:5.14 (1904.5)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예수는 예루살렘의 좁은 길을 따라 성전으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이것이 성전에서의 고별 강연이 될 것이라는 주(主)의 말씀을 방금 전에 들었으며, 그를 따라가는 동안 내내 침묵하였고 깊은 묵상을 하였다.

제 175 편 성전에서의 마지막 강연

175:0.1 (1905.1) 화요일 오후 두 시가 막 지났을 때, 예수는 열 한 사도들, 아리마대 요셉, 30명의 그리스인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도착하였으며, 성전 뜰에서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였다. 이 강연은 유대 민족에게 마지막 호소를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자신의 맹렬한 적들과 아마도 자신을 죽이게 될 사람들—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통치자—에 대한 마지막 고소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오전에는 여러 무리들이 계속하여 예수께 질문을 하였지만; 오후가 된 지금은 그에게 질문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175:0.2 (1905.2) **예수가** 말씀을 시작하자, 성전 뜰은 조용하고 질서정연하였다. 환전상들과 상인들은 전 날 예수와 분개한 군중들에 의해 쫓겨난 이후로, 다시는 감히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예수는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인간을 향한 자비를 내용으로 하는 공개적인 작별 말씀과, 고집불통의 유대인 통치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마지막 경고를 이제 곧 듣게 될 청중들을 부드럽게 내려다 보셨다.

제 1 장. 강연

175:1.1 (1905.3)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아버지의 사랑을 사람 자녀들에게 전파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았고, 신앙으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갔다. 이 가르침과 설교들에 관련하여, 아버지는 불가사의한 일들을 많이 하였으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였다. 많은 병자들과 고통 받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나음을 입었으나; 병을 고치고 진리를 선포한 이 모든 것들로도 빛을 보기를 거부하는 자들, 왕국 복음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자들의 눈을 뜨게 하지는 못하였다.

175:1.2 (1905.4) “나와 사도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아버지의 뜻을 시종일관 행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전통들이 합당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지킴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추구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진리와 하늘의 빛을 거절함으로써, 잘못과 어둠 편에 스스로 줄을 섰다. 빛과 어둠 사이, 생명과 죽음 사이, 진리와 실수 사이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

175:1.3 (1905.5) “너희 대부분은 나의 가르침들을 기꺼이 믿었으며, 하느님의 아들관계를 인식하는 해방과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다. 또한 너희는 이와 똑같은 하느님의 아들관계를 모든 유대 나라, 심지어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제시하였던 나에 대하여 증인이 될 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지금이라도, 만일 눈이 먼 이들

선생과 위선적인 영도자들이 단지 그에게 돌아서서 그의 자비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지금이라도 이 민족이 하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을 환영한다면, 아직 늦은 것이 아니다.

175:1.4 (1906.1) "나의 아버지는 이 민족들에게 오랫동안 자비로 대하였다.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우리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가르치고 경고하였으며,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늘이 보낸 이 선생들을 죽였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의 완고한 우두머리 사제들과 고집스런 통치자들이 이와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한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게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사람의 아들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

175:1.5 (1906.2) "유대인들이 나의 아버지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을 기회가 있는 한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께서 너희를 향해 자비의 손을 뻗치고 계실 것이지만; 너희가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그 잔이 가득 차게 되면, 그리고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자비를 일단 최종적으로 거절하게 되면, 이 나라는 스스로의 조언으로 버려지겠고, 급속히 치욕스런 종말에 이를 것이다. 이

민족은 하느님을-아는 종족의 영적 영광을 내비춰 보이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름 받았으나, 너희는 신성한 특권의 성취에서 너무나 벗어나서, 너희 영도자들은 모든 사람과 모든 시대에 주는 하느님의 선물—땅에 있는 그의 모든 창조체에 대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계시하는 것—을 마침내 거절할 지경에서, 저희가 바야흐로 모든 시대에서의 최극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175:1.6 (1906.3) “그리고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계시를 일단 거부하고 나면, 하늘의 왕국은 다른 민족들,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아들일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졌던 영원한 진리의 기수(旗手)와 신성한 율법의 보호관리자로서의 너희 위치를 잃어버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앞으로 나아와 회개하도록 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진실한 신앙으로, 온 가슴을 다하여 하느님을 찾아 하늘의 왕국의 구원과 안전을 성취하려는 너희의 노력을 보이도록 하는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한다.

175:1.7 (1906.4) “나의 아버지는 너희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일해 오셨으며, 내가 이곳에 내려와 너희와 함께 살면서 그 길을 개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왕국 복음을 믿었지만, 첫 번째로 앞에 나아와 하늘의 빛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하느님의 진리의 계시—하느님이 사람 속에 나타내시고 사람이 하느님께로 올라간다는—를 믿기를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다.

175:1.8 (1906.5) “너희 앞에 서 있는 사도들이 오늘 오후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구원에로의 초청과 함께, 그리고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들로서 하늘왕국과 연합하라고 독려하면서 울려 퍼지는 그들의 음성을 너희가 곧 듣게 될 것이다. 나는 왕국 복음을 믿는 자들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 옆에 있는 메신저들에게도, 내가 이스라엘과 그 통치자들에게 해방과 구원의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을 증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아버지의 자비가 어떻게 무시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리의 메신저들이 어떻게 거부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충고하니, 사람의 왕국들을

다스리실 지고자들께서 이 나라를 최종적으로 정복하고 이 통치자들의 지위를 무너뜨리기까지는, 너희가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협조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사람의 아들을 죽이려는 그들의 계획에 너희가 연합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평화와 관련된 모든 면에서 너희는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로 그들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따르고, 율법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잘 준수하되, 그들의 악한 소행들은 본받지 말라. 이 통치자들의 다음과 같은 죄를 꼭 기억해라: 그들은 선하다고 말하는 그것을 자신들이 행치는 않는다. 이 영도자들이 어떻게 너희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웠는지, 그 짐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그리고 정작 자기들은 너희가 지는 이 무거운 짐을 도와주기 위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려는 것을 너희가 잘 알 것이다.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儀式)들로 너희를 압제하며, 전통들에 의해 너희를 노예로 삼는다.

175:1.9 (1907.1) “더욱이, 자아-중심적인 이들 통치자들은 사람에게 그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자신의 선행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 그들은 몸에 지니는 성구함을 넓게 만들고 관복의 옷자락을 더 크게 한다. 그들은 축제

때에 가장 높은 자리를 원하며 회당에서는 주빈 석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시장바닥에서 찬미의 인사말을 나누고자 하며 모든 사람에게 랍비라는 칭함을 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는 이러한 모든 명예를 받으려 하면서, 과부들의 집을 손아귀에 넣고 성스러운 성전의 예배봉사들로부터 이익을 챙긴다. 이 위선자들은 겉치레로 대중적 기도를 길게 하며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선을 베풀고 있다.

175:1.10 (1907.2) “너희는 통치자들을 명예로 받들고 너희 선생들을 존경해야만하지만, 어떤 사람도 영적 의미에서의 아버지로 부르면 안 된다.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왕국에서 형제들 위에 군림하려고 애쓰지 마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나의 가르침을 꼭 기억하라. 만일 너희가 하느님 앞에서 칭찬 받으리라고 스스로 여긴다면, 너희는 틀림없이 낮아질 것이지만,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분명히 칭찬을 받을 것이다. 너희 일상생활 속에서 자아-영광을 찾지 말고 하느님의 영광을 찾으라. 너희 자신의 뜻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이성적으로 굴복시켜라.

175:1.11 (1907.3) “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나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우두머리 사제들과 통치자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는다; 나의 가르침들을 거절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증오심을 갖고 있지 않다. 너희 대부분이 은밀하게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며, 나의 때가 오면 너희가 왕국에 대한 너희 자신의 충성심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되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랍비들은 하느님과 대화한다고 고백하고 나서, 그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내려고 온 그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니, 어떻게 자기 자신들을 변명할 수 있겠느냐?

175:1.12 (1907.4) “위선자인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그들이 너희 가르침을 우연히 배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실된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의 문들을 닫아버리려고 한다. 너희는 왕국에 들어가기를 거절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의 모든 권력을 동원한다. 너희는 구원에 이르는 문들 앞에 서서 그곳에 들어가려는 모든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

175:1.13 (1907.5)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지니,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너희가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성공하게 되면, 그가 이방의 자녀로 있었을 때보다 배나 더 나쁘게 만들고 나서야 너희는 만족한다.

175:1.14 (1907.6) “모세가 제정하였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느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들에게 과중한 의무를 요구하고,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너희 우두머리 사제들과 통치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자비를 베풀기를 거절하는 너희가 앞으로 올 세상에서 자비를 바랄 수 있겠느냐?

175:1.15 (1907.7) “너희 거짓 선생들, 눈이 먼 인도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둘 모두 멸망의 구렁이에 빠져버릴 것이다.

175:1.16 (1907.8) “거짓으로 서약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성전으로 서약한 사람은 그 서약을 깰 수 있지만, 성전에 있는 금으로 서약한 자는 지켜야만 한다고 가르치니, 너희는 사기꾼들이다. 너희는 참으로 어리석고 눈이 먼 자들이다. 너희는 부정직함에서 조차도 일관성이 없으니,

금이 더 크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성전이 더 크냐? 또한 너희는 가르치기를, 사람이 만일 제단으로 서약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에 바친 제물로 서약하면 값아야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지만 너희는 진리에 눈이 먼 자들이니, 제물이 더 크냐 아니면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더 크냐? 그러한 위선과 거짓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느냐?

175:1.17 (1908.1)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확실하게 드리면서 율법의 더 중한 문제들—신앙, 자비, 그리고 심판—은 무시하는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다른 모든 위선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전자(前者)의 것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후자(後者)의 것도 행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정말로 눈이 먼 인도자들이고 병어리 선생들이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다.

175:1.18 (1908.2) "잔과 접시의 겉은 빈틈없이 깨끗하게 닦지만, 그 속에는 강탈과 난폭 그리고 속임수의 오물이 남아있느니,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이다. 너희는 잔의

속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넘쳐흐르는 것이 그 자체로 밖을 저절로 깨끗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인지하지 못하겠느냐? 너희 사악한 버림받은 자들아! 너희의 혼은 사악한 불의에 젖어있고 살의로 가득 차 있으면서, 모세의 율법에 대한 너희 해석의 글자를 가지고 겉으로 드러내는 너희 종교의 이행 성취를 확인하려 있구나.

175:1.19 (1908.3) “진리를 거부하고 자비를 거절하는 너희 모두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 대부분은, 밖은 아름답게 꾸몄지만 속에는 죽은 자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하느님의 조언을 알면서도 거절하는 너희가 겉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희 가슴속은 외식과 사악한 불의로 가득 차 있다.

175:1.20 (1908.4) “민족의 거짓 안내자인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저 너머에 순교 당한 옛 선지자들의 유적을 세워놓고는, 한편으로는 그들이 말했던 바로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너희는 정의로운 자들의 무덤들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만일 너희가 조상의 때에

살았더라면 너희는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스스로 뽐내고 있다; 그리고는 그렇게 자아-정의로움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너희는, 선지자들이 전한 그 사람, 사람의 아들을 살해하려는 준비를 갖추었다. 너희가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악한 그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가라, 그리고 너희 죄를 드러내는 잔을 넘치도록 가득 채워라!

175:1.21 (1908.5) “악의 자손들인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요한이 진실로 너희를 독사의 자식들이라 불렀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묻겠는데, 요한이 너희에게 선포한 그 심판을 너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175:1.22 (1908.6) “그러나 나는 지금도 너희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비와 용서를 베풀고자 한다; 나는 아직도 영원한 친교를 위한 사랑 넘치는 손을 내밀고 있다. 나의 아버지는 너희에게 현명한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나; 너희는 어떤 사람들은 박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였다. 그 때 요한이 나타나 사람의 아들이 오신다는 것을 전파하였지만, 너희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믿게 된 후에 그를 죽였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더욱 순결한 피를 흘리게 할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다. 하늘에서 온 이 메신저들을 그들이 거부하고 박해하고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모든 세상에 대한 재판관이 이 민족에게 요구할, 무시무시한 응징의 날이 임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겠느냐? 처음 죽임을 당한 선지자로부터, 지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스가랴 시절까지, 이 모든 의로운 피에 대하여 너희가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만일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을 계속 가면, 이 책임은 아마도 바로 이 세대에게 요구될 것이다.

175:1.23 (1908.7) “오!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너희에게 보낸 선생들을 죽인 예루살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밑에 모으듯 내가 너희 자녀들을 지금도 모으고자 하지만, 너희는 말을 듣지 않는구나!

175:1.24 (1908.8)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작별을 고한다. 너희는 나의 메시지를 들었고 너희 결심을 정하였다. 나의 복음을 믿기로 한 자들은 지금도 하느님의 왕국 안에서 안전하다. 하느님의 선물을 거절하기로 선택한 너희들에게

말하겠는데, 성전에서 가르치는 나를 너희가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일은 끝났다. 보라, 내가 지금 나의 자녀들과 함께 가지만, 너희 집은 황폐하게 남아 있으리라!”

175:1.25 (1908.9) 그리고 나서 주(主)는 성전을 떠나자고 따르는 자들을 손짓하여 부르셨다.

제 2 장. 개별 유대인의 지위

175:2.1 (1909.1) 유대 나라의 영적 영도자들과 종교적 교사들이 예수의 가르침들을 한 때 거절하고 그를 잔인하게 죽이기로 모의한 그 사실이 하느님 앞에 서는 유대인들 각자의 신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유대인과 동료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하게 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한 나라로서, 하나의 사회 정치적인 집단으로서의 유대인들은 평화의 영주를 거절한데 대한 무시무시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였다. 그들은 인류에게 신성한 진리의 영적 선구자가 되기를 오래 전에 포기하였지만, 그러나 자연적인 출생으로 스스로 유대인이 되신 나사렛 예수를 따른다고 공공연하게 떠드는 편협하고 비열하며

고집불통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옛날 유대인들이
가했었던 박해의 고통을, 그들의 후손들 각자가
고통당해야하는 까닭이라 하는 것은 더 이상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175:2.2 (1909.2) 현대 유대인들에 대한 불합리하고
비(非)그리스도적인 이런 증오와 박해는, 예수의 시대에
진심으로 그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마침내는 그들이
그토록 전심으로 믿었던 그 진리를 위해 단호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던 선조를 가진, 어떤 순결하고 죄가 없는 유대인
개별존재의 고난과 죽음으로 여러 차례 끝나게 하였다.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했던 자들이, 하늘왕국의 복음을
위한 첫 순교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영광스럽게 포기한
베드로, 빌립, 마태 그리고 다른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훗날 후손들을 종교적으로 박해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살해까지 하는 데에 스스로 빠져드는 것을 바라보고,
지켜보면서 천상의 존재들에게 얼마나 몸서리치는
참극들이 지나가고 있는지!

175:2.3 (1909.3) 선조들의 죄 때문에, 순결한 자녀들이,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이 전혀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러한

악행들로, 수난을 당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불합리한 일인지! 그리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분의 이름으로 그러한 사악한 행위들이 벌어지다니! 예수의 일생을 이렇게 다시 진술하면서, 그의 동료인 유대인들의 일정인들이 그를 거부하고 또 그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안겨주려 음모를 꾸민 그 자세를 묘사하는 일이 부득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기록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경고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역사적 진술이, 그렇게 많은 자칭 그리스도교인들이 여러 세기 동안 유대인 개별존재들을 향하여 유지해왔던, 옳지 않은 증오를 어떤 방법에서든지 정당화시키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부당한 마음의 태도를 묵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왕국을 믿는 자들은 유대인 개별존재를 대할 때,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인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어야만 한다. 아버지와 창조자 아들은 유대인을 사랑하기를 포기한 적이 결코 없으시다. 하느님은 사람들을 차별대우하지 않으시며, 구원은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제 3 장. 숙명적인 산헤드린 회의

^{175:3.1 (1909.4)} 화요일 저녁 8시에, 산헤드린의 숙명적인 회의가 소집되었다. 유대 나라의 이 대법정은 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를 사형에 처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선언하였었다. 위엄 있는 이 통치기관은 그의 일을 멈추게 하기로 결정하기는 하였지만,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를 체포하여 죽이기로 표결한 적은 없었다. 당시에 선출된 산헤드린 회원들이 예수와 나사로 둘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일에 공식적으로 그리고 만장일치로 투표한 것은 서기30년 4월 4일 화요일 자정이 막 되어 가는 무렵이었다. 이것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성전에서 하였던 유대인 통치자들을 향한 주(主)의 마지막 호소에 대한 대답이었으며, 그것은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우두머리 사제들 그리고 완고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의 마지막이고도 힘찬 고발에 대하여 그들의 지독한 분개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었다. 하느님의 아들에게 내려진(재판하기도 전에) 사형선고는 유대 나라에도 언제나 그러한 입장에서 퍼져갈 수 있었던 하늘의 자비를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에 대한 산헤드린의 반응이었다.

175:3.2 (1910.1) 이때로부터 유대인들은 유란시아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순전히 그들의 인간 지위에 따라서만, 그들의 덧없고 또 짧은 기간의 민족적 일생을 완결하도록 남겨졌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던 하느님의 아들을 거부하였으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세상에 흩어지게 하여 진리의 빛을 전하는 자들로 삼으려는 계획을 거부하였다. 신성한 계약은 폐기되었고, 히브리 나라의 종말이 신속히 임하게 되었다.

175:3.3 (1910.2) 산헤드린의 관리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하달하였지만, 대중들 앞에서 체포하지는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들은 비밀리에, 밤에 갑자기 그를 체포할 계획을 보고 받았다. 그들은 예수가 그 날(수요일)에는 가르치러 성전으로 돌아오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알고, “목요일 자정 전까지 유대 대법정 앞으로 그를 데려 오라”고 산헤드린 관리들에게 지시하였다.

제 4 장. 예루살렘의 상황

175:4.1 (1910.3) 성전에서 있었던 예수의 마지막 강연의 결론 부분에, 사도들은 다시 한 번 당황하고 깜짝 놀랐다.

주(主)가 유대 통치자들에 대해 끔찍한 선언을 시작하기 전에, 유다도 성전으로 돌아왔으며, 그리하여 성전에서 있었던 예수의 마지막 설교의 후반부를 열 두 사도들 모두가 듣게 되었다. 작별을 고하는 이 강연에서 첫 부분과 자비를 제시하는 절반 부분을 가롯 유다가 듣지 못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유대인 통치자들에게 제시한 이 마지막 자비의 초청을 그가 듣지 못한 것은, 어떤 사두개인 친척들 무리와 점심을 같이하면서, 예수와 동료 사도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아직도 의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다가 복음 운동을 저버리고 모든 계획에서 손을 씻기로 최종적으로 충분하게 결심한 것은, 유대 영도자들과 통치자들이 주(主)의 최종적인 고발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 두 명의 일행에 끼어 성전을 떠나 올리브 산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그는, 그의 동료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과 유대 나라의 종말에 관한 숙명적 강연을 들었으며, 그 화요일 밤에는 겿세마네 근처에 있는 새로운 야영지에서 그들과 함께 남아 있었다.

175:4.2 (1910.4) 유대 영도자들에게 자비로운 호소를 하던 것에서 방향을 바꾸어, 가차 없이 심하게 경고하면서 갑자기

그리고 통렬하게 꾸짖으시는 예수의 말씀을 들은
군중들은 놀라서 어리둥절하였다. 그 날 밤, 산헤드린은
예수께 사형을 선고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 그리고
주(主)는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 중 몇몇과 함께 올리브
산에 앉아 유대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는 동안에, 온
예루살렘은 오직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심각하면서도 은밀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175:4.3 (1910.5) 니고데모의 집에는 비밀리에 왕국을 믿는 30명
이상의 저명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산헤드린과의 공개적인
단절이 이를 때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의논하였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주(主)가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그에 대한 충성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기로 동의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했던
그대로 행하였다.

175:4.4 (1911.1) 이제는 산헤드린을 통제하고 지배하게 된
사두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예수를 몹시 죽이고
싶어 하였다:

175:4.5 (1911.2) 1. 그에 대한 군중들의 관심이 점점 더 일반적인
호의로 자라감으로써 로마 당국자들의 개입을 불러

일으켜 유대 나라가 실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을 그들은 우려하였다.

175:4.6 (1911.3) 2. 성전 개혁에 대한 그의 열정이 그들의 수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으며; 성전 청결은 그들의 돈지갑에 영향을 끼쳤다.

175:4.7 (1911.4) 3. 그들은 사회 계층 유지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형제신분을 이룬다는 이상하고 새로운 예수의 교리가 더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175:4.8 (1911.5) 바리새인들은 다른 동기에서 예수를 죽이고자하였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175:4.9 (1911.6) 1. 그가 말하는 것이 그 민족에 대한 그들의 전통적 지배권에 여러모로 반대되는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극단적인 보수파였으므로, 그들의 종교적 교사들로서의 기득권에 대해 과격하게 공격한다고 생각하여 몹시 분개하였다.

175:4.10 (1911.7) 2. 그들은 예수가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판단하였다; 그가 안식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율법과 예식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무시한다고 생각하였다.

175:4.11 (1911.8) 3. 그들은 그가 하느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신성모독죄를 선고했다.

175:4.12 (1911.9) 4. 그리고 이제는 그의 마지막 강연의 결론 부분에 도달하였을 때 이 날 그가 성전에서 제시하였던 신랄한 비난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에게 철저하게 분노를 품게 되었다.

175:4.13 (1911.10) 산헤드린은, 예수의 사형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그를 체포하도록 명령을 내린 후에, 예수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고소를 공식화(公式化)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날 아침 10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모일 것을 약속한 후 이 화요일 자정 무렵에 해산하였다.

175:4.14 (1911.11) 약간의 사두개인 무리들이 예수를 암살하여 처치하자고 실재로 제안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방법을 단호히 거절하였다.

175:4.15 (1911.12) 이것이 파란 많은 이 날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상태였으며, 거대한 무리의 천상의 존재들이 이 땅의 중대한 사건 주변에서 모여서, 그들이 사랑하는 주권자를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하였지만, 그들에게 명령하는 상급자들이 효과적으로 제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제 176 편 화요일 저녁 올리브 산에서

176:0.1 (1912.1) 화요일 오후, 예수와 사도들이 성전에서 나가 겟세마네 야영지로 가는 도중에, 마태는 성전 건축물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말했다; “주(主)여, 이 건물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좀 보십시오. 저 거대한 돌들과 아름다운 장식을 보니; 이런 건물들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올리브 산을 향하여 나갈 때 예수는 말했다; “너희가 이 돌들과 거대한 성전을 보겠지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때가 곧 올 것이다. 저들이 모두 무너뜨릴 것이다.” 신성한 성전의 파괴를 뜻하는 이러한 말씀은 주(主)의 뒤를 따라 걸어오고 있는 사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세상이

끝나는 날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176:0.2 (1912.2) 기드온 계곡을 따라 겿세마네로 가는 군중들을 피하기 위해, 예수와 사도들은 올리브 산 서쪽 능선을 오르는 짧은 거리를 오른 다음, 대중 야영장 위로 조금 떨어진 겿세마네 근처에 설치된 그들의 사설 야영지를 향하는 오솔길을 따라갈 생각이었다. 그들은 베다니로 이르는 길에서 벗어나려고 돌아서면서, 석양의 빛으로 영광스러워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산에서 머무르는 동안, 그들은 도시에서 비치는 빛들을 보았고, 불빛이 비추어진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 보름달의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예수와 사도들은 앉아 있었다. 예수는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윽고 나다니엘이 질문하였다: “주(主)여,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 1 장. 예루살렘의 멸망

176:1.1 (1912.3) 나다니엘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예수는 말했다; “이 민족이 그들의 사악한 불의의 잔을 가득 채웠을 때,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이 도시에 공의가 속히 임하는 때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 하겠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려한다;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너희를 떠난 후에,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해방자인 것처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들과 전쟁의 소문들을 들었을 때,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예루살렘의 멸망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근과 지진들 때문에 동요하지 말라; 너희가 시민 재판관들에게 넘겨지거나 복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회당에서 쫓겨나겠고 나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겠으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총독들과 통치자들 앞에 끌려갈 때, 그것은 너희 신앙을 증거 하기 위한 것이며 왕국 복음에 대해 너희가 확고부동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재판관들 앞에 설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마라. 너희 적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순간에 영이 너희에게 가르쳐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고난의 시절에는, 너희 친족들조차도 사람의 아들을 거절하였던 그들의 지배 아래에서, 너희를 감옥에 넘겨주어 죽게 할 것이다. 나로

인하여 너희가 얼마 동안 미움을 받겠지만,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영도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인내하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적들을 무찌르고 결국에는 모든 나라들에게 선포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라.”

176:1.2 (1913.1) 예수는 잠시 멈추시고 도시를 내려다보셨다. 메시아의 영적 개념에 대한 거부, 기대하던 해방자의 물질적인 역할에 맹목적으로 계속 매어 달리려는 경향이 이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강력한 로마 집단와의 직접적인 갈등을 야기할 것이며, 그러한 싸움은 마침내 유대 나라의 완벽한 멸망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주(主)는 깨달았다. 그의 민족이 그의 영적 증여를 거부하고 그토록 자비롭게 그들에게 내려 쏘는 하늘의 빛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을 때, 그리하여 그들은 이 땅에서의 특별한 영적 사명을 가진 하나의 독립적인 민족으로서의 그들의 운명을 마감하였다. 심지어 유대 영도자들도, 동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결국에는 그들을 멸망하게 한 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세속적 관념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

176:1.3 (1913.2) 예루살렘이 초기 복음 운동의 요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 선생들과 설교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유대 민족의 무시무시한 멸망 속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러한 지시들을 하였던 것이다.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 중에 누구도 곧-다가올 반역에 가담하여 예루살렘의 파멸 속에서 죽게 되지 않기를 무척 바라섰다.

176:1.4 (1913.3) 그 때 안드레가 물었다. “그렇지만 주(主)여, 만약에 거룩한 도시가 성전이 멸망될 것이라면,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지도하기 위하여 여기에 계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을 떠나면 됩니까?” 예수는 대답했다; “내가 떠난 후에, 힘들고 쓰라린 박해의 때까지도 너희는 그 도시에 머물러라.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반란이 있는 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 멸망이 임박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니; 그 때가 되면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야만 한다. 아무도 성(城)안에 있게 하지 말고 아무것이나 구하려고 그 주변에 머무르게 하지 말 것이며, 밖에 있는 자들도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는 이방인이 복수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도시를 떠난 후에, 순종하지 않는 이 민족은 무력에 의해 함락될 것이고 모든 나라들에게 포로로 잡힐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는데, 그러는 동안에 너희는 속지 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와서, '보라, 그 해방자가 여기 있다.'고 말하거나 '보라, 그가 저기에 있다.'고 말하여도 그것을 믿지 마라.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이야기해 주었으니, 너희는 속지 않을 것이다."

176:1.5 (1913.4) 몹시 놀라게 하는 주(主)의 예언의 말씀이 어리둥절한 사도들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동안, 그들은 달빛 아래에서 한참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로마 군대가 처음 나타났을 때 신자들 그리고 제자들 전체의 무리가 북쪽에 있는 펠라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바로 이러한 경고(警告)에 따라서였다,

176:1.6 (1913.5) 이러한 명백한 경고가 있는 후에도, 예수를 추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언이 메시아가 다시

나타날 때 새 예루살렘이 건설될 것을 의미하며, 확대된 도시가 세계의 수도가 되는 명백한 변화가 예루살렘에서 발생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이 유대인들은 마음속으로, 성전 파괴가 “세상의 종말”과 관련된다고 결정하였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채울 것이라고 믿었다; 세상의 종말이 있는 후에 즉시로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주(主)여,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나타나면 이 모든 것들이 끝나리라는 것은 저희도 알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이 언제 오실지를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176:1.7 (1914.1) 예수는 이 말을 들으시고,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너희가 늘 실수하는 것은 새로운 가르침을 옛날 것에 붙이려고 애쓰는 까닭이다; 나의 모든 가르침을 오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너희 자신의 이미 확립된 믿음으로 복음을 해석하려고 고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 2 장. 주(主)의 재림

176:2.1 (1914.2) 예수는 이 세상을 곧 떠날 계획을 가지시면서, 하늘왕국의 일을 더할 나위 없이 이루기 위하여 분명히 돌아오실 것이라고 청중들이 추측하도록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였다. 제자들에게 그가 자신들을 떠나려 한다는 신념이 점차 커짐에 따라서,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난 그 이후에는, 이들 돌아오겠다는 약속에 모든 신자들이 즉시 매달리게 된 것은 오직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는 일찍부터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로부터 대부분 세대들의 제자들은 이 진리를 독실하게 믿었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그의 재림의 때를 고대하였다.

176:2.2 (1914.3) 만일 그들이 주(主)요 선생님이신 그와 일치했었다면, 그 첫 번째 제자들과 사도들은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을 훨씬 더 이해하였을 것이며, 예루살렘의 예고된 멸망과 재림의 약속을 연관시키는 일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았을 것이다. 올리브 산에서 이 날 저녁 내내, 주(主)가 그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하여 그렇게 해석하였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더욱 자세히 답변하면서
예수가 말했다; “너는 왜 아직도 사람의 아들이 다윗의
보좌에 앉기를 바라고, 유대인들의 현세적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느냐?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 몇 년 동안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네가 지금 내려다보는 것들은 종말에 다가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니 그때부터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고 이 구원은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왕국이 충만한 결실로 다가올 때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미 이 세상에 어둠의 영주가 된
자를 증여했었고, 그 다음에 아담을, 그를 뒤따라
멜기세덱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의 아들을 보내신
것과 같이, 그렇게 진리에 대한 확대된 계시와 증진된
정의(正義)의 실연과 함께 반드시 너희에게 오실 것임에
확신을 가져라. 그렇게 나의 아버지는 어둡고 악한 이
세상에도 당신의 자비를 나타내시고 사랑을 현시하시는
일을 계속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또한, 나의
아버지께서 모든 힘과 권한을 내게 부어서 맡겨주신
다음에는, 곧 바로 모든 육신에게 쏟아지게 될 나의 영의
현존으로서 계속하여 너희의 번영을 추구하고 그리고

왕국의 관련사들을 안내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영으로 너희와 현존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는 또한 내가 육신으로 이 생명을 살았고 하느님을 사람에게 나타냄과 동시에 사람을 하느님께로 인도하였던 이 세상으로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임을 약속한다. 이제 곧 나는 너희를 떠나야만 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위임한 일을 떠맡아야 하지만, 내가 언젠가 돌아올 것이니 용기를 내라. 그 동안에 한 우주에서의 나의 진리의 영이 너희를 위로하고 인도할 것이다.

176:2.4 (1915.1) “너희가 지금은 육신으로 있는 그리고 나약함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지만,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힘과 영으로 있을 것이다.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으로 있는 사람의 아들을 보지만, 아버지에 의해 영화롭게 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땅에 나타날 사람의 아들은 오직 영의 눈만이 볼 수 있을 것이다.

176:2.5 (1915.2)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다시 나타나는 때는 파라다이스 회의에서만 알려졌을 뿐이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조차도 언제 이러한 일이 발생할지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너희가 납득해야만 할 것은,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어 있을 때, 그리고
시대에서의 충만함이 끝을 지나치려 이르렀을 때,
아버지는 너희에게 또 다른 섭리시대적 증여를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아들이 시대를 판결하러 돌아올
것이다.

176:2.6 (1915.3)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고난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듯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 말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는 것에
관하여는,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 하려고
추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한 시기에서의
무르익음에 대하여는 지혜로와만 한다; 시절의 징조를
식별하기 위하여 경각심을 가져야만 한다. 무화과 나무에
연한 가지들이 나오고 잎이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는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물질적인-
마음작용의 긴 겨울을 거쳐서 끝을 지나왔고 그래서
너희가 새로운 섭리시대의 영적 봄철이 오고 있음을
식별할 때에는, 너희는 새로운 방문(訪問)의 여름철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마땅히 알 것이다.

176:2.7 (1915.4) “그러나 하느님의 아들이 오는 것과 관련된 이러한 가르침의 의의(意義)가 무엇이겠느냐? 너희들 각자가 생(生)의 투쟁을 내려놓고 죽음의 관문을 거쳐서 지나가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 너희는 즉시 심판의 현존앞에 있게 되고, 그것이 무한한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에서 봉사하는 새로운 섭리시대의 사실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임을 너희가 깨닫지는 못하겠느냐? 한 시기의 끝에서 온 세상이 글자 그대로의 사실로 마주하는 모든 것을, 너희는, 개별존재로서, 너희 자연적 생명의 끝에 너희가 이르렀을 때, 각각은 가장 확실하게 개인적 체험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로서 아버지의 왕국에서의 영원한 진보의 다음번 계시에 선천적으로 들어있는 조건과 요구와 부닥쳐보면서 통과하는 것이다.

176:2.8 (1915.5) 주(主)가 그의 사도들에게 주신 모든 강연들 중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자신의 재림에 대한, 올리브 산에서 이 화요일 저녁에 주신 이 이중적인 주제에 관한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에 그토록 혼동을 일으킨 것은 없었다. 그러므로 이 특별한 기회를 맞아 주(主)가 하신 말씀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이후에 기록된 여러 설명들 사이에는 거의 일치하는 점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

화요일 저녁에 말썬한 것들 대부분의 기록들이 공백으로 남아있게 되자, 많은 전승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칼리굴라 황제의 법정에 소속되었던 셀타라는 사람이 2세기 아주 초기에 쓴 메시아에 관한 유대 종말론 사상이 마태복음에 통채로 복사되었으며, 후에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기록에 (부분적으로) 첨가 되었다. 열 처녀의 비유가 출현한 것도 셀타의 이 기록들에서 였다. 이 날 저녁의 가르침만큼 복음서 기록에서 혼동되어 오해를 일으킨 것이 없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러한 혼동을 일으킨 적이 전혀 없었다.

^{176:2,9 (1915,6)} 이들 열 세 명의 사람들은 야영지로 돌아가면서 말이 없었고 감정적인 긴장감은 크게 고조되어 있었다. 유다는 자기 연관-동료들을 버리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다윗 세베대와 요한 마가 그리고 여러 명의 수제자들이 예수와 열 두 명을 새 야영지로 맞이한 때는 무척 늦은 시간이었지만, 사도들은 잠을 자고 싶지 않았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主)의 떠나심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 하였다.

제 3 장. 야영지에서의 토론

176:3.1 (1916.1) 약 20여 명이 되는 그들이 모닥불 앞에 모였을 때, 도마가 질문하였다. “주(主)께서 왕국의 일을 완결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후로, 당신이 아버지의 일 때문에 이곳에 계시지 않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는 모닥불에 비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176:3.2 (1916.2) “도마야, 너마저도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왕국이 영적이고 개별적이라는 사실, 그것은 전적으로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 것을 신앙-실현에 의해 영 안에서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네게 내내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내가 무엇을 더 말해야 하느냐? 나라들의 멸망, 제국들의 파멸,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패망, 한 시대의 종말, 심지어는 세상의 종말, 이런 것들이 복음을 믿고 영원한 왕국에 대한 확신 속에 생명을 맡긴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느님을-아는 그리고 복음을- 믿는 너희는 영원한 생명의 확증을 이미 받아들였다. 영 속에서 살게 되고 아버지를 위해 살게 된 너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왕국 건축자들, 하늘 세계들의 공인된 시민들은 일시적인 변혁 때문에 동요되거나 지구의 격변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생명이 아들의 선물이고 아버지 안에서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나라들이 전복되든지 시대가 끝나든지 아니면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파괴되든지, 이 왕국 복음을 믿는 너희들에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신앙으로 현세의 일생을 살고 동료들을 사랑으로 봉사하는 정의로써 영적 열매를 맺으면서, 첫 번째 모험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험을 통해 하느님의 아들관계로 너희를 인도한 동일한 생존하는 신앙과 함께, 영원한 생애의 다음 단계를 너희는 자신감을 가지고 고대할 수 있다.

176:3.3 (1916.3) “각 개별 믿는 자가 피할 수 없고 언제든지-들이닥칠 수 있는 자연적 죽음을 참작하면서도 자신들의 일생의 일을 수행하며 나아가듯 마찬가지로 이와 똑같이, 믿는 자들의 각각의 세대는 사람의 아들의 가능할 수 있는 귀환을 참작하면서도 자신들의 일을 계속 수행해야만 한다. 너희가 일단 신앙으로 너희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이로서 세우고 나면, 생존의 확실성에 관한 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수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생존적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며, 인간 가슴 속에 맨처음 영감을 일으켰던 바로 그 신성한 영의 열매들을 점점 많이 현시한다. 하늘왕국 안에서

아들관계임을 일단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육신을 입은 하느님 아들이 진보하는 영적 열매의-수확을 행해야 한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끈질기게 거절하는 모습에서는 너희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아버지의 일을 해 왔다 할지라도, 너희가 인류를 위한 아버지의 봉사에서의 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한다면, 너희는 지금 당장 왕국을 저버릴 수 있는 것이다.

176:3.4 (1916.4) "각 개별존재로써, 그리고 믿는 자들의 한 세대로써, 내가 말하는 비유를 들어라: 큰 권세를 가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로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신뢰하는 자기 하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면서,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다. 그리고 또한 영예를 얻은 모든 청지기들 각자의 힘에 따라 알맞게 자신의 재물을 위탁하였다; 그 후에 여행을 떠났다. 그들의 주님이 길을 떠나자, 하인들은 맡겨진 재물로 이익을 얻으려고 일을 하였다. 다섯 달란트를 받아들인 자는 그것들을 가지고 즉시 장사를 시작하여 곧 다섯 달란트의 이익을 남겼다. 마찬가지로 두

달란트를 받아들인 자도 곧 두 달란트의 이익을 얻었다. 그리고 한 달란트를 받아들인 자를 제외한 모든 하인들이 그들의 주님을 위하여 이익을 남겼다. 그는 혼자 가서 땅을 파고 그의 주님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윽고 종들의 주님이 갑자기 돌아왔으며, 계산하기 위하여 청지기들을 불렀다. 모두 그들의 주님 앞에 불려오자,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하인이 맡겨졌던 돈과 이익으로 남긴 다른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주님, 당신께서 제게 투자하도록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그 이익으로 다른 다섯 달란트를 내놓게 되어 기쁩니다.' 그러자 그의 주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하인아, 너는 적은 것들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길 것이다; 즉시 너의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두 달란트를 받아들였던 자가 앞으로 나아와서 말하기를, '주님, 제게 두 달란트를 맡겨 주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다른 두 달란트를 이익으로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야; 너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네게 맡길 것이다; 너의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여라.' 그 때 한 달란트를

받아들였던 사람이 회계하기 위하여 왔다. 이 하인은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주님, 저는 당신을 알고 또 당신이 개인적으로 수고하지 않은 곳에서 이익을 기대하시니, 당신이 기민하신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게 맡겨진 그 어떤 것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당신이 맡기신 한 달란트를 땅 속에 안전하게 감추었습니다; 그것이 여기 있으니; 당신의 것을 이제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의 주님은 대답했다; '너는 나태하고 게으른 청지기이다. 너의 부지런한 동료 하인들이 오늘 바친 것과 같이 합당한 이익으로 내가 네게 요구하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네가 네 자신의 말로 고백하였다. 네가 이것을 알았으니, 적어도 내 돈을 은행에 맡겨 내가 이자라도 받아들이도록 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주님은 청지기 우두머리에게 말했다; '무익한 이 하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어라'

176:3.5 (1917.1)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져서 풍족하게 갖게 될 것이지만; 없는 자에게서는 그 가진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왕국의 관련자들 속에 활동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없다. 나의 아버지는 그의 모든 자녀들이 진리에

대한 지식과 은혜가 성숙되어갈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진리들을 아는 너희는 영의 열매들을 점점 더 많이 맺혀야 하며 너희 동료 하인들에 대한 사심-없는 봉사에 대해 점점 더 성숙된 헌신을 현시해야 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나를 돌본 것임을 명심(銘心)하여라.

176:3.6 (1917.2)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되, 지금 그리고 앞으로 계속, 늘 언제까지라고 해야 한다. 내가 올 때까지 계속해라. 너희에게 맡겨진 것을 신실하게 행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에게 임할 죽음에 대해 너희가 준비될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들에게 만족을 드리게 되면, 너희는 기쁨과 대단히 큰 즐거움을 가지고 영속하는 왕국에서 영구히 봉사하게 될 것이다.”

176:3.7 (1917.3) “진리는 살아있는 것이다; 진리의 영은 빛의 자녀들을 새로운 영적 실체와 신성한 봉사의 세계로 언제나 인도한다. 정착되고 안정되며 명예로운 형태들로 굳어진 진리가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계시되는 진리는 너희의 개인적 체험을 통하여

증진되어야만하고, 그리하여 너희에게 멋진 영적 열매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아름다움과 실재적인 영적 성취가 보일 것이며, 그 결과로 그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될 것이다. 진리에 대한 지식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여 영적 실체들에서의 신성한 깊은 이해에 대한 수용능력을 개발하는 저들 신실한 하인들만이 “주님의 기쁨에 충분하게 동참하는” 희망을 언제나 가질 수 있다. 신성한 진리에 대한 그들의 직무에 관하여,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뒤따르는 세대들이, “주(主)여, 백년 또는 천 년 전에 당신께서 저희에게 맡겼던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보존하였다; 당신이 저희에게 가르치셨던 것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당신이 저희에게 주셨던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른다. 영적 나태함을 나타내는 그런 변명이 진리에 대해 무기력한 그 청지기를 주(主)의 현존 안에서 정당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진리의 주(主)는 너희의 손에 맡겨진 그 진리에 따라서 계산을 요구하실 것이다.

176:3.8 (1918.1)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졌던 책무들과 자질들에 대해 다음 세상에 가서 답변을 해야만 할 것이다. 선천적인 재능이 적든지 많든지, 정당하고 자비로운 계산서를 받아야만 한다. 만일에 자질들이 이기적인 추구에만 사용되고, 영적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맺는 더 높은 임무에 생각을 쏟지 않는다면, 사람의 언제까지나-확대되는 봉사와 하느님께 대한 경배를 현시하게 되면서, 그러한 이기적인 청지기들은 자신의 고의적인 선택에 대한 결과들을 감수해야만 한다.

176:3.9 (1918.2) 모든 이기적인 필사자들은, 자신의 나태함을 대놓고 주인의 탓으로 돌렸던 한 달란트를 받은 불충한 하인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자신이 저지른 실패에 직면하였을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때로는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176:3.10 (1918.3)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갈 때 예수는 말했다;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하늘의 진리를 그저 주어야 하고, 그렇게 줄 때, 너희가 그것을 돌보는 만큼, 이 진리는 배가될 것이며 은혜를 간직한 빛이 더 많이 비쳐질 것이다.

제 4 장. 미가엘의 재림

^{176:4.1 (1918.4)} 주(主)의 모든 가르침들 중에서, 언젠가 이 세상에 직접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만큼 오해된 것이 없다. 미가엘이 영역의 필사자로서 그의 일곱 번째이며 마지막 증여의 체험을 하였던 행성에 언젠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는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신 나사렛 예수가 그러한 독특한 일생을 살았고, 아버지의 우주 힘과 권세에서의 무제한적 증여를 최종적으로 스스로 이겨낸 세상에 한 번 뿐만 아니라 여러 번이라도 다시 돌아오고 싶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유란시아는 우주적 주권 획득에 있어서 미가엘이 일곱 번 탄생한 구체들 중의 하나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176:4.2 (1918.5)} 예수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시리라는 의향을 비치셨다. 주(主)가 현세적인 해방자로서 활동하지 않으시리라는 사실을 따르는 무리들이 깨달았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대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다시 돌아오리라는 그의 약속과 이 비극적인 사건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연관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로마 집단들이 예루살렘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며 유대 땅의 유대인들을 흩어버렸을 때에도 주(主)가 힘과 권세로 나타나시지 않게 되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시대의 끝, 심지어는 세상의 종말과 연관시키는 믿음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176:4.3 (1918.6)}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후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신의 손에 쥐어진 후에, 두 가지 일들을 하실 것을 약속하였다. 그가 약속한 첫 번째는, 자기 대신에 다른 선생, 진리의 영을 세상에 보내실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약속을 오순절 날에 이것을 행하였다. 두 번째는, 그가 언젠가 이 세상에 직접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가 육신 속에서 증여의 체험을 하였던 이 행성에 어떻게, 어느 곳에, 또는 언제 방문하실 것인지는 말씀하지 않았다. 그가 꼭 한 번 그것을 암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가 육신 속에 살았을 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재림(여러 번의 가능한 방문들 중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때에는 오직 영적 신앙의 눈에 의해서만 식별될 것이라고 하였다.

176:4.4 (1919.1) 우리들 대부분은 예수가 오는 시대들 동안 여러 번 돌아오실 것이라고 믿으려고 한다. 이렇게 여러 번 방문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가진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우주 칭호들 중에서 유란시아의 행성영주라는 칭호를 지니신 분이, 자신의 정복으로 그에게 그러한 독특한 칭호가 부여된 그 세계를 아마도 여러 번 방문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176:4.5 (1919.2) 우리는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직접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믿지만, 그가 언제 또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오실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념도 없다. 그의 이 땅에서의 재림이 현 세대의 최종 심판과 연관된 때에 발생할 것인가, 또는 주인으로서의 치안법관 아들과의 공동 출현과 함께 아니면 그와는 별개로 발생할 것인가? 그 후의 어떤 유란시아 시대의 종결과 연관하여 오실 것인가? 예고 없이 독립된 사건으로 오실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가 돌아오실 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베들레헴의 아기로서가 아니라 우주의 최극 통치자로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 사실을 알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모든 사람이 그를 보아야 한다면, 그리고 오직 영적

눈을 가진 자들만이 그의 현존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의 출현은 먼 훗날로 연기되어야만 할 것이다.

176:4.6 (1919.3)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모든 사건들이나 정해진 신(新)시대들에, 주(主)의 이 땅에의 직접적인 재림을 연관시키지 않도록 잘 처신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확신하는 단 한 가지는: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였다는 것이다. 그가 언제 혹은 무엇과 연관하여 이 약속을 이루실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념도 가진 것이 없다. 우리가 아는 한, 그는 아무 때라도 이 땅에 나타나실 수 있으며, 여러 시대가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파라다이스 집단의 연관-동료 아들들에 의해 정해지는 때까지 오지 않으실 수도 있다.

176:4.7 (1919.4) 미가엘의 이 땅에의 두 번째 강림은 중도자들은 물론 인간들에게 엄청난 정서적 가치를 지닌 사건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은 중도자들에게 그 어떤 즉각적인 계기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자연적인 죽음, 필사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들의 우주의 주권 통치자이신 바로 그 예수의 현존 앞에 직접 인도하는 우주 사건의 그 연속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도록 그렇게

갑자기 내몰아치는, 자연적인 죽음이라는 일상 사건보다도 더 큰, 아무런 실천적 중요성도 없다. 빛의 자녀들은 모두 그를 만나게 되어 있으며, 우리가 그에게로 가든지 또는 혹시 그가 먼저 우리에게로 오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가 하늘에서 너희를 환영할 준비를 하고 서 계시듯이, 너희도 그를 이 땅에서 환영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가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을 자신감을 가지며 고대하고 있지만, 어떻게, 언제, 혹은 어떤 것과 관련해서 그가 나타날 예정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다.

제 177 편 수요일, 휴식을 취한 날

177:0.1 (1920.1)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시달리지 않을 때, 예수와 사도들은 수요일마다 늘 그들의 수고로부터 휴식을 취하곤 하였다. 특히 이 수요일에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아침 식사를 하였고, 야영지는 불길한 정적으로 싸여 있었다; 아침 식사시간이 반쯤 지날 때까지 아무도 말이 없었다. 마침내 예수가 말씀하였다. “오늘은 너희가 휴식을 취하기 바란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온 후로 생긴 일들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고, 내가 명백히 말하였던, 앞으로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묵상해 보거라. 진리가 너희 삶 속에

함께 있다는 것과 은혜 속에서 너희가 매일 매일 자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여라.”

177:0.2 (1920.2) 식사가 끝나자 주(主)는 안드레에게 하루 종일 그곳에 계시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였으며, 사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 외에는 각자 선택에 따라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177:0.3 (1920.3) 예수가 혼자서 동산 위로 올라가실 준비가 되셨을 때, 다윗 세베대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주(主)여, 바리새인들과 통치자들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 어떻게 혼자서 동산을 올라가려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니; 당신과 동행하도록 세 사람을 보내어 안전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충분히-무장을 한 세 사람의 건장한 갈릴리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윗에게 말씀하였다. “네가 무슨 뜻으로 그러는지는 잘 알겠지만, 사람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네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내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 일생을 마치도록 준비되기 전에는 아무도 내게 손을 댈 수 없다. 이 사람들은 나와 동행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하여 혼자 있어야 하겠다.”

177:0.4 (1920.4) 이 말씀을 듣고 다윗과 무장된 감시병들은 물러갔지만; 예수가 홀로 출발할 때 요한 마가가 음식과 물이 든 작은 바구니를 들고 따라 나오면서, 하루 종일 혼자 계시면 아마 시장하지 않겠느냐고 넌지시 제안하였다. 주(主)는 요한에게 미소를 띠시면서 바구니를 받으러 가까이 가셨다.

제 1 장. 홀로 하느님과 함께 한 하루

177:1.1 (1920.5) 예수가 요한의 손에서 점심 바구니를 받아 드시자, 그 소년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렇지만 주(主)여, 바구니를 놓아두고 기도에 몰두하게 되면 아마 그것을 잊으실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점심 식사를 갖고 따라가면, 아마 더 자유롭게 경배하실 수 있을 것이며, 저는 그 동안 아주 조용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을 것이며, 혼자 떨어져서 기도하는 동안 바구니 옆에 남아 지키고 있겠습니다.”

177:1.2 (1920.6) 이렇게 말하는 동안,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그 무모함에 놀랐지만, 요한은 바구니를 잡고

놓으려 하지 않았다. 요한과 예수가 그 바구니를 같이 붙잡고 그곳에 서 있었다. 이윽고 주(主)는 같이 가도록 허락하고, 그 소년을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였다. “네가 전심으로 나와 같이 가기를 간청하니, 거절할 수 없구나. 우리들끼리 따로 가서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자. 너는 무엇이든지 가슴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물어보아도 괜찮으며, 서로 위로하고 편안하게 하도록 하자. 네가 먼저 점심 바구니를 들고 가고, 힘이 들면 내가 도움을 주마. 나를 따라오너라.”

177:1.3 (1921.1) 예수는 그 날 저녁 해가 지기까지 야영지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主)는 진리를 갈망하는 소년과 함께 하고 자신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에 대해 말하면서 이 땅에서의 고요한 마지막 날을 보내셨다. 이 사건은 “소년이 동산에서 하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날”로 저 높은 곳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장면은 창조자께서 창조체와의 동료관계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소년이라 할지라도, 가슴속에 실제로 강하게 원한다면, 우주적인 하느님의 주의를 끌 수 있고 사랑스런 동행자관계를 나눌 수 있으며, 하루 종일 동산에서 홀로 하느님과 함께 하는 잊을 수 없는 황홀경을

실재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유대에 있는 언덕에서 이 수요일에 요한 마가만이 그러한 독특한 체험을 하였던 것이다.

177:1.4 (1920.8) 예수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관련사에 관하여 자연스럽고 말하면서 요한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요한은 사도들중의 하나가 될 만큼 충분한 나이에 이르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다고 예수께 말씀드렸으며, 페니키아로 여행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여리고 근처의 요단강에서 첫 설교를 들은 이후로 줄곧 그들을 따라다니도록 허락을 받았던 것에 대해 크게 감사를 드렸다. 예수는 곧 다가올 사건들 때문에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소년에게 이르시고, 그가 왕국에 대한 막강한 메신저로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에게 확신시키셨다.

177:1.5 (1920.9) 요한 마가는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이 날의 기억 때문에 감동되기는 하였지만, 겟세마네 야영지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주(主)가 마지막으로 한 훈계, “자, 요한아, 우리가 참 좋은 시간을 갖고 실제 하루를 쉬었는데, 내가 네게 말한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하여라.”는 말씀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요한 마가는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보낸 이 날에 일어났던 것은 아무 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177:1.6 (1920.10) **예수가 이 땅에 계신 얼마 안 되는 남은 시간 동안** 요한 마가는 줄곧 가까이에서 주(主)를 따라다녔다. 그 소년은 항상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다; 예수가 주무실 때에만 잠을 잤다.

제 2 장. 어린 때의 가정생활

177:2.1 (1921.5) 이 날 요한 마가와 함께 하는 동안, 예수는 어린 시절과 소년 시절의 체험을 서로 비교해 보는 중요한 시간을 보내셨다. 예수의 부모가 소유했던 것보다 요한의 부모가 세상 재물을 더 많이 소유하기는 하였지만, 소년 시절의 체험이 서로 매우 흡사하였다. 예수는 요한이 부모와 다른 가족들을 다 잘 납득하는 데 도움이 될 많은 것들을 말씀하였다. 그 소년이 자기가 “왕국에 대한 막강한 메신저”가 될 것을 어떻게 아실 수 있느냐고 주(主)께 질문하자, 예수는 말했다:

177:2.2 (1921.6) “나는 네가 왕국 복음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현재

신앙과 사랑 위에 의존할 수 있으니 이들 본질특성들이 가정에서의 네 역할로 되어 있듯이 것처럼 어려서부터의 훈련 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부모가 서로 상대방에 진실한 애정을 품는 가정에서의 소산이며, 따라서 자아-중요에 대한 너의 개념을 드높이는 것처럼 위험스러울 만큼의 과도한 사랑을 받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너의 확신과 충성에 대해, 하나가 다른 것에 반대되는, 네 부모님의 사랑 없는 조종의 결과 안에서 네 개인성이 왜곡을 참아온 것도 아니다. 너는 칭찬받을 만한 자아-확신을 보장하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정상적인 감정들을 육성하는 그러한 부모의 사랑을 누려왔다. 그러나 너는 네 부모가 사랑뿐만 아니라 지혜까지 소유하였다는 것에서 또한 행운을 누리고 있다; 그들이 한편으로는 너를 이웃 동무들과 함께 회당 학교에 보내면서도, 재산으로 살 수 있는 각종 탐닉의 형태와 그리고 많은 사치품에서 그들을 억누른 것은 지혜였고, 그리고 그들은 네가 근원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도록 네게 용기를 북돋았었다. 너는 네 어린 친구 아모스와 함께, 우리가 설교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으로 왔었다. 너희 둘 모두가 우리와 함께 가려고 갈망하였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네 부모들은 나를 따르는 일에 동의하였다; 아모스의 부모들은 거절하였다; 그들은 자기 아들을 지나치게 사랑하였기 때문에 네가 지녀왔던 복된 체험, 나아가서 네가 오늘 누리는 그러한 체험마저 그가 못하게 하였다. 아모스가 집에서 도망치면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했다면 그는 상처받은 사랑과 희생되어진 충성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이 지혜롭다 하더라도, 체험, 독립 그리고 해방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지혜로운 부모들은, 네 부모가 그러하듯이, 그들의 자녀들이 네 나이까지 자랐을 때 독립심을 개발하고 활기가 솟아나는 해방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상처받은 사랑이나 억눌린 충성심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177:2.3 (1922.1) "요한아, 사랑은 모든-현명한 존재들에 의해 증여될 때에는 우주의 최극 실체가 되지만, 필사자 부모들의 체험에서 현시되는 것처럼 위험하기도 하며 그리고 종종 어느 정도 이기적인 특징이 있다. 네가

결혼하게 되어 네 자식을 기르게 되거든, 네가 주는 사랑이 지혜로서 충고가 되고 지능으로서 인도되도록 하여라.

177:2.4 (1922.2) “네 어린 친구 아모스는 네가 믿는 만큼 왕국 복음을 믿고 있지만, 나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으며;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가 어렸을 때의 가정생활은, 충분히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아모스는 정상적이고 사랑스러우며 현명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사도중의 하나와 너무도 흡사하다. 네가 정상적이고 잘-규율 잡힌 가정에서 일생의 첫 8년 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네 모든 삶은 더욱 행복하고 믿음직스러울 것이다. 네가 사랑이 넘치고 지혜가 지배하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성격이 강건하고 원만하다. 그러한 어린 시절의 교육으로 인하여 생성된 충성심의 유형은 나로 하여금 네가 시작한 그 과정을 잘 통과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177:2.5 (1922.3) 예수와 요한은 가정생활에 대하여 한 시간이 넘도록 이야기하였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정은 인간적이거나 신성한 관계를 처음으로 알게 하는 전부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적, 사회적, 도덕적, 그리고 심지어는 영적인 모든 초기 개념에 대하여, 어린이는 부모와 가정생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주(主)는 요한에게 계속 설명하였다. 어린이는 우주에 대한 첫 인상을 어머니의 보살핌으로부터 얻을 수밖에 없다; 그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첫 관념을 땅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어지는 어린이의 일생은 그의 어린 시절의 정신적 감정적 일생에 따라서, 가정에서의 이들 사회적 그리고 영적 관계로서 조건을 갖추며, 행복하게 또는 불행하게 되고, 편안하게 또는 어렵게 된다. 인간 존재의 전체 여생은 실존에서의 처음 몇 년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따라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

177:2.6 (1922.4) 아버지-자녀 관계에 기초를 둔, 예수가 가르친 복음은 현대의 문명화된 민족들의 가정생활이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지혜를 가지게 될 그러한 때에야 비로소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20세기에 살고 있는 부모들이 가정을 개선하고 가정생활을 고귀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지식과 진리를 더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가정생활이 즉시로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더라도, 갈릴리에 있었던 예수의 가정이나 유대에 있었던 마가의 가정처럼 훌륭한 환경을 이루는 가정은 아직도 매우 드문 것이 여전히 사실이다. 현명한 가정의 사랑이 넘치는 생활과 참 종교에 대한 충실한 헌신은 서로에게 상호적인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가정생활은 종교심을 향상시키고, 참된 종교심은 항상 가정을 영광되게 해준다.

177:2.7 (1923.1) 옛날에 유대인의 가정들에 있었던, 발육을 방해하는 잘못된 영향들과 속박하는 특성들이, 더 잘 규제된 현대 가정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더 많은 자연발생적인 자유와, 훨씬 더 많은 개인적 해방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해방은 사랑에 의해 억제되는 것이 아니고, 충성심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며, 지혜의 지능적 단련에 의해 지도받지도 않는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니거나 항상, 아버지라는 낱말이 자라나는 모든 자녀의 마음과 가슴속에서 값지게 간직되도록, 그렇게 가정을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엄청난 책임이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주어져 있다.

제 3 장. 그 날 야영지에서는

177:3.1 (1923.2) 사도들은 올리브 산을 거닐고, 그들과 함께 유숙하고 있는 제자들을 방문하면서 이 날 대부분을 보냈지만, 오후가 되면서 예수가 돌아오시기를 몹시 고대하였다.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안전이 더욱 염려가 되었다; 그가 계시지 않음으로써 형언키 어려울 만큼 쓸쓸함을 느꼈다. 주(主)가 오직 심부름하는 아이 하나만 데리고 홀로 동산에 오르시도록 허용되어야 했었는지에 대하여 종일 논란이 있었다. 아무도 자기 생각을 솔직히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가롯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요한 마가 대신에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였다.

177:3.2 (1923.3) 오후 중반쯤 되어서 나다니엘은 6명 정도의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 앞에서 “최극 욕망”에 대해 연설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끝을 맺었다: “우리들 대부분에게 그릇된 점은 속으로 망설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모두 요한 마가가 한 것처럼 그를 따라가고자 하였다면, 틀림없이 우리 모두를 데리고 가셨을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동안, 그 아이는 주(主) 앞으로 달려 나가 바구니를 내어 밀고, 주(主)가 그것을 잡으려 할 때 그

아이는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主)는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시고, 바구니와 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갖고 동산으로 가버리셨다.”

177:3.3 (1923.4) 4시쯤 되어서 전령들이 다윗 세베대에게 벳세다에 있는 그의 어머니와 예수의 어머니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다윗은 며칠 전 우두머리 사제들과 통치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다윗은 그들이 주(主)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을 알았으며, 예수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성한 힘을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과 추종자들로 하여금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메신저를 자기 어머니에게 보내어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 것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가족 모든 식구를 데려오라고 재촉하였다.

177:3.4 (1923.5) 다윗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말대로 하였고, 그의 어머니와 예수의 전 가족이 길을 떠났으며 내일 저녁 또는 모레 아침에는 예루살렘에 도착될 것이라는 소식을 그 전령이 지금 가져왔던 것이다. 다윗은 이 일을 혼자서

결정하고 실행하였기 때문에, 혼자서만 알고 있는 것이 현명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의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177:3.5 (1924.1) 정오가 조금 지나서,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서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을 만났던 20명 이상의 그리스인들이 야영지에 도착하였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과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이 그리스인들, 적어도 그들 중의 일부는, 알렉산드리아의 로단에 의해 훈련을 받아서, 왕국에 대한 지식이 많이 앞서 있었다.

177:3.6 (1924.2) 그 날 저녁, 야영지로 돌아오신 예수는 그 그리스인들을 만났으며, 대부분의 수제자들과 사도들이 크게 혼란된 것은, 심지어는 그가 칠십 인에게 했던 것처럼 이들 20명의 그리스인들에게 사도임명을 하려 했기 때문이다.

177:3.7 (1924.3) 이 모든 일들이 야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가 군중들에게 설교하기 위하여 다시 나타나시지 않는 것에 대해 우두머리 사제들과 장로들이 몹시 놀랐다. 정말로, 하루 전날, 그가 성전을 떠나시면서,

“너희 집을 너희에게 황폐하게 남겨두고 나는 떠난다.”고 말씀하였었다. 그러나 군중들의 호의적인 태도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왜 의도적으로 그냥 지나쳐 버리려고 하는지 그들은 납득할 수 없었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에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반면, 주(主)는 군중들에게 한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자리에 앉은”그들의 권한에 대해 모든 합당한 방법으로 간곡하게 확인시키셨던 것이다. 그러나 도시에서의 하루는 유월절을 준비함과 동시에 예수를 죽이려는 그들의 계획을 완전하게 하면서 바쁘게 지나갔다.

177:3.8 (1924.4) 매일 밤마다 베다니에 나가는 대신에, 예수가 그곳에 머물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안 모든 사람들이 비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야영지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았다.

제 4 장. 유다와 우두머리 사제들

177:4.1 (1924.5) 예수와 요한 마가가 그 야영지를 떠난 직후, 가롯 유다는 형제들 중에서 사라졌으며, 그 날 오후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혼동되고 불만으로 가득 찬 이 사도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주(主)의 특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의 적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산헤드린의 비공식 모임이었으며, 아침 10시가 조금 지난 후에 약속이 되어 있었다. 이 모임은 예수에 반대하여 제기될 그 고소의 본질을 의논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이미 그에게 선고하였던 그 사형 선고에 대하여 필수적인 민사적 인준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를 로마 당국자들 앞으로 끌고 오는 일에 적용될 그 절차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소집되었다.

^{177:4.2 (1924.6)} 그 전 날, 유다는 예수가 악의가 없는 몽상가인 동시에 이상주의자이며 그는 고대하던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자신이 내리게 되었음을 자기 친척들과 자기 아버지의 가족의 어떤 사두개인 친구들에게 비쳤었다. 유다는 모든 활동으로부터 품위 있게 물러설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기를 몹시 원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탈퇴가 유대 통치자들에게 큰 사건으로 환영받을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아침하는 말로써 그를 안심시켰다. 그들은 그가 산헤드린에서 큰

상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선의이기는 하였지만 “무식한 갈릴리인들과 함께 하는 불행”으로 인한 오점을 결국 씻게 될 것이라고 꾀었다.

177:4.3 (1924.7) 유다는 주(主)가 행하였던 기적들이 마귀들의 영주의 힘에 의한 것이었다고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는 이제 예수가 자신의 힘을 자아-웅대함을 위해 쓰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충분히 확신하게 되었다; 예수는 유대 통치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시리라는 것을 마침내 확신하게 되었고, 실패한 운동과 정체성이 확인되는 존재라는 굴욕적인 생각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명백하게 드러난 실패의 관념을 받아들이기 거절하였다. 그는 주(主)의 불굴의 성격과 장엄하고 자비로운 마음의 예리함을 속속들이 깨닫기는 하였으나, 그의 친척 중 한 사람이 예수가 좋은-의미에서는 열광적이라고 하겠지만 아마도 실제로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가 항상 이상하고 오해받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라는, 단지 거들어주는 위로의 제안으로 위안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 예수가 자기에게 더 큰 명예로운 지위를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이상스러울 만큼 화가 나있는, 전에는 결코 그런 적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는 그 동안 자신이 사도들의 회계를 담당하는 명예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였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인정받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힘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예수와 가까운 관계를 가지는 영예를 받은 것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개심이 갑자기 그에게 엄습하였으며, 예수를 배반하려 하는 생각보다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 대하여 더욱 심사가 뒤틀려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로 그때, 새롭게 압도하는 생각이 그의 의식을 사로잡기 시작하였다: 그가 스스로 명예를 세워야 한다는 것, 그리로 이것이 만약 그의 일생에 가장 큰 실망을 안겨주었던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과 동시에 확보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떠올랐다. 그는 혼동, 자부심, 절망, 그리고 결심이 무시무시하게 어우러진 곳에 빠져 들어갔다. 그러므로 유다가 예수에 대한 배반을 정리하려고 가야바의 집으로

가는 길에 오른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177:4.5 (1925.2) 유다가 가야바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예수와 그의 동료 사도들을 버리기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하늘의 왕국의 명분에 대한 주장을 저버리기로 그의 마음에 결심하면서, 예수와 새로운 왕국 복음에 자신을 처음으로 정체성 확인하였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명예와 영광이, 언젠가 최대한으로 자기 것이 되도록 보장을 받겠다고 결심하였다. 다른 모든 사도들도 유다와 같은 이 야심을 한 때 가졌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진리를 사모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배웠는데, 적어도 유다보다는 더 그러하였다.

177:4.6 (1925.3) 반역자는 가야바와 유대 통치자들 앞으로 나왔으며, 그들 옆에는 그의 사촌이 있었으며, 유다가 예수의 교활한 가르침으로 인하여 자신이 잘못 인도되도록 허용한 그의 실수를 발견하고 있으며, 갈릴리 사람과 가졌던 관련성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정식으로 단념하기를 원하는 처지에 이르렀으며, 동시에 유대인 형제들의 자신감과 동료관계가 원래대로 회복되기를

요청한다고 설명하였다. 유다를 위한 이 대변자는, 만약에
예수가 감금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을 유다가 깨달았다는 것과,
그러한 잘못된 운동에 가담하였던 것에 대해 후회하는
증거로, 그리고 이제 진정 모세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증거로, 예수에 대한 체포명령을 가진 대장과
함께 그를 조용히 붙잡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서,
그리하여 군중을 동요시키는 위험이나 그의 체포를
유월절 이후로 연기해야 할 필요성을 피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산헤드린에 자청해서 제안하려고 그가
왔다고 설명하였다.

177:4.7 (1925.4) 그의 사촌이 말을 다 끝냈을 때, 그가 유다를
소개하였는데, 그는 대제사장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제
사촌이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하겠지만, 이러한 봉사의
대가로 무엇을 제게 주시겠습니까?” 매정하고 자만심이
가득 찬 가야바의 얼굴에 비쳤던 경멸과 심지어 혐오의
표정을 유다가 식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그의
가슴은 자아-영광에 너무 집착해 있었고 자아-고취의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177:4.8 (1926.1) 그러자 가야바는 배반자를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유다야, 너는 수비대 대장에게 가서 오늘 밤 아니면 내일 밤 네 주(主)를 우리에게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조치하여라. 네 손으로 그를 우리에게 넘겨주면, 너는 이 봉사에 대한 너의 보상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유다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우두머리 사제들과 통치자들 앞에서 물러나왔으며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체포할 것인지에 대해 성전 수비대장과 상의를 하였다. 유다는 그 때 예수가 그 야영지에 계시지 않으며 그 날 밤 언제쯤 그가 돌아오실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음 날 밤(목요일) 예루살렘 사람들과 방문 중인 순례자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어간 후에 예수를 체포하기로 동의하였다.

177:4.9 (1926.2) 유다는 여러 날 동안 가져보지 못했었던, 위풍과

영광을 받을 생각으로 황홀해하며 야영지의 연관-동료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예수가 언젠가 새로운 왕국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에게 협조하였었다. 그는 자기가 예상하였던 그러한 새 왕국은 건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이제 다시 살아남으리라고 믿으면서, 고대하고 있던 새 왕국에서 영광을 얻지 못한 자신의

실망감을, 예수와 그가 상징했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 분명하다고 여기는 예전 계층으로부터 얻을 명예와 보상의 즉각적인 실현과 거래하여 바꾸면서, 자신이 그렇게 기민하게 행동한 것을 기쁨으로 향유했다, 의식적으로 의도한 마지막 동기에서 볼 때, 예수에 대한 유다의 배반은 이기적인 도망자의 비겁한 행위였고, 그가 지녔던 생각은 오직, 자신의 행위가 주(主)와 옛 연관-동료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안전과 영광스러움뿐이었다.

177:4.10 (1926.3) 그러나 그것은 늘 그런 식이었다. 유다는 이러한 고의적이고 끈질기고 이기적이고 보복하려는 의식을 그의 마음속에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왔었으며, 그의 가슴에는 이들 증오에 차고 그리고 복수하고 배신하려는 악한 욕망들을 품고 있었다. 예수는 다른 사도들을 사랑하고 신뢰하였던 것처럼 유다를 사랑하고 신뢰하였으나, 유다는 그 보답으로써 전심으로 사랑하는 체험이나 충실한 신뢰를 개발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리고 일단 자아-추구에 온통 집착하고 그리고 시무룩하고 오래-억눌려온 복수심에 의해 최극으로 자극받으면, 야망이 얼마나 위험하게 될 수 있는지! 시간 속에서 사라져가는 그리고

그림자 같은 매혹에 자신들의 시선을 단단히 고정시키면서, 신성한 가치와 참된 영적 실체들의 영원한 세계의 영속하는 달성에 대한 더욱 높고 더욱 실제적인 성취에는 장님이 되어가는, 어리석은 저들 개인들의 삶 속에서는 실망이 얼마나 사람을 짓밟는 일이 되는지 모른다. 유다는 세상의 명예를 마음속에서 갈망하였고 이 욕망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다른 사도들도 역시 마음속에 똑같은 세상의 명예를 갈망하였지만, 그들은 가슴으로 예수를 사랑하였으며 그가 가르치시는 진리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177:4.11 (1926.4) 유다는 이때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세례자 요한이 헤롯에 의해 목 베임을 당한 후부터 줄곧 예수를 잠재의식적으로 비평을 해 왔다는 것이었다. 유다는 예수가 요한을 살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의 가슴 속에서 항상 원망하였다. 유다가 예수를 따르기 전에는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유다가 증오로 옷을 입혀서 자기 혼속에 간직했던 인간적 분개심과 심한 실망감은 이제 차곡차곡 쌓이고 쌓여 이들 모두가 그의 잠재의식 마음속에서 잘 조직되었고, 그리고 그가 한때 형제들의 지지해주는

감화력에서 과감히 자신이 떨어져 나왔을 때 그리고는
예수의 적들의 영리한 아첨과 교활한 비웃음에 자신을
노출하고 있을 때, 그를 삼켜버리려고 용수철처럼 튀어
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다가 하늘높이 희망을 띄어
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산산조각으로 만드는 말씀이나
행동을 예수가 할 때마다, 그의 가슴속에는 쓰라린
분개심의 상처가 항상 남았다; 그리고 이들 상처들이
늘어가면서, 너무 자주 상처받은, 가슴은 이제, 선의를
가졌지만 그러나 비겁하고 자아-중심적인 개인성에게
이런 불쾌한 체험을 입혔던 사람에 대한 모든 실제 애정을
잃었다. 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는 비겁자였다.
따라서 그는 영광과 권력이 쉽게 손닿는 곳에 있는 듯
보였을 때 그것을 장악하기를 그가 거절하게 만든 동기는
예수가 비겁하게 소심한 것이라고 항상 여기려고 하였다.
사랑이 한 때는 진실하였다 할지라도, 실망과 질투 그리고
오랫동안의 분개심을 지니게 되면, 결국에는 실재적인
미움으로 바뀐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잘 안다.

177:4.12 (1927.1) 우두머리 사제들과 장로들은 마침내 몇 시간
동안 편안히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공개적으로 체포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예수가 그

동안에는 여러 번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갔지만, 반역에 가담하겠다는 유다의 약속은 그것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제 5 장. 마지막 친교 시간

^{177:5.1 (1927.2)} 이 날은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야영지에서의 저녁 시간은 친교 시간이었다. 주(主)는 풀이 죽은 사도들을 격려하려고 애쓰셨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은 모두 혼란스럽고 파멸적인 사건들이 곧 일어나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주(主)가 파란만장했던 지난날들과 사랑스러웠던 교제를 상기시켰을 때에도 그들은 즐거워할 수가 없었다. 예수는 모든 사도들의 가족에 대해 일일이 질문을 하였으며, 다윗 세베대를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어머니와 막내 여동생 또는 다른 가족들에 대해 혹시 최근에 소식을 듣지 못하였는지를 물어보셨다. 다윗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자기 발을 내려다 보았다; 그는 대답하기가 두려웠다.

^{177:5.2 (1927.3)} 이때는 사람들에게 군중들의 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한 예수의 경고가 있던 때였다. 주(主)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을 열심히 따르다가, 그 다음에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그들을 배척하면서 예전에 자신들의 믿음과 삶의 형태로 되돌아갔던 갈릴리에서의 체험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성전에서 우리말을 듣고 우리의 가르침들을 믿는 것처럼 보이던 많은 군중들로 인하여 스스로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 사람들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속에 그것을 천박하게 믿기는 하지만, 진리의 말이 가슴속에 살아있는 뿌리를 뺏쳐 내리도록 허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복음을 오직 마음으로만 알고, 아직 가슴속에 체험하지 못한 저들은 실제로 고난이 올 때 그것으로 버티어내는 것을 의지할 수 없다. 유대인 통치자들이 사람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의할 때, 그리고 하나로 뭉쳐 공격할 때, 군중들이 당황하여 도망하든지, 아니면 격노하고 눈이 먼 이 통치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들을 죽이는 동안 놀라면서 아무 말 없이 잠잠히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역경과 박해가 너희에게 닥칠 때, 여전히 진리를 사랑한다고 너희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도 흩어질 것이며, 어떤 이들은 복음을 부인하고 너희를 저버릴 것이다.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하였던 어떤 이들은 이미

저버리기로 작정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닥쳐 온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휴식을 취하였다. 그러므로 곧 다가올 날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내일은 힘이 강화되도록 깨어있고 그리고 기도하라.”

177:5.3 (1927.4) 야영지 주변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가득하였다. 메신저들이 조용하게 오가면서 다윗 세베대에게만 보고하였다. 밤이 지나가기 전에 몇몇 사람은 나사로가 베다니에서 급히 피신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요한 마가는 주(主)와 함께 하루 종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야영지로 돌아온 후로 이상할 만큼 완강하게 침묵을 지켰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을 시키려고 하였지만, 예수가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분명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177:5.4 (1928.1) 주(主)의 유쾌한 기분과 평상시와는 다른 친근한 태도도 그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들은 모두 끔찍한 고립이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고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공포와 함께 갑작스럽게 내려닥치리라고 깨달았다. 그들은 무엇이 올지 어렵פות이 감지하였지만, 아무도 그 시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주(主)는

하루 종일 다른 곳에 계셨었고; 그들은 그가 없었으므로 엄청나게 쓸쓸했었다.

^{177:5.5 (1928.2)} 이 수요일 저녁은 주(主)가 돌아가시는 바로 그 실재 시간이 되기까지, 그들의 영적 지위가 가장 낮은 지위로 여겨지는 날이었다. 다음 날은 비극의 금요일에 더 가까이 가는데 하루 더 있는 날이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였고, 그들은 조바심 나는 시간들을 더욱 의젓하게 겪고 있었다.

^{177:5.6 (1928.3)} 주(主)는 이 땅에서 자신이 선택하였던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잠자리에 들도록 흠어 보내시면서, "형제들아, 가서 잠을 자라. 내일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평안 하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우리가 그의 아들들인 것을 아는 즐거움을 체험할 날이 하루가 더 있다."고 말씀한 것은 자정이 거의 되었을 때였다.

제 178 편 야영지에서의 마지막 날

^{178:0.1 (1929.1)} 예수는 육체로 육신화한 신성한 아들이로서 이 땅에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이 목요일을, 사도들과 몇몇 충성되고 헌신된 제자들과 함께 보내려고

계획하였다. 아름다운 이날 아침, 식사시간이 끝나자 주(主)는 곧 야영지에서 약간 위에 있는 계획된 장소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으며, 많은 새로운 진리들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예수가 그 날 초저녁 시간에 사도들에게 다른 강연을 하였지만, 목요일 오전에 하였던 이 말씀은 야영지에 머무르는 사도들과 선택된 제자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그 무리들에게 주신 작별 설교였다. 열 두 사도는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 참석하였다. 베드로와 몇몇 다른 사도들은 그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아마도 다가오는 유월절 경축행사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어떤 일들 때문에 예수가 그를 그 도시로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나누려고 열 두 사도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기 직전인, 오후 중반까지도 유다는 야영지로 돌아오지 않았다.

제 1 장. 아들관계와 시민관계에 관한 강연

178:1.1 (1929.2) 예수는 믿을만한 오십 여명의 제자들에게 거의 두 시간 동안 말씀하였으며, 하늘의 왕국과 이 세상 왕국의 관계, 하느님께 대하여 아들이 되는 것과 이 세상에서 시민이 되는 것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많은 질문들에

대답하였다. 이 때 한 강연을 질문들에 대한 그의 답변들과 함께 현대의 언어로 다시 간추려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178:1.2 (1929.3) 물질적 속성의 이 세상 왕국들은 법을 집행하는데서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기세를 수용해야할 필요가 종종 발생한다. 하늘의 왕국에 있는 참된 신자들은 물리적 기세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게 된다. 하늘의 왕국, 영으로-태어난 하느님의 아들들의 영적 형제신분 존재는 오직 영의 힘에 의해서만 퍼져 나갈 것이다. 이러한 진행에서의 차별성은 신자들의 왕국이 세속 정부의 왕국들에 대해 갖는 관계를 언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자들의 사회 집단이 그들의 계층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다루기 힘들고 자격 없는 구성원들의 단련을 실시하는 권한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178:1.3 (1929.4) 영적 왕국에서의 아들관계와 세속 또는 시민 정부에서의 시민(市民)관계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시저의 것을 시저에게,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내어놓은 것은 믿는 자들의 의무이다. 만일 시저가 하느님의 특권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 충성과 최극의 경배를 자기에게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는 물질적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이 두 가지 요구들 사이에서 어떤 논쟁도 있을 수 없다. 그러한 경우에 너희는 잘못 인도된 세상 통치자들을 깨우치고 그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면서 오직 하느님만을 경배해야만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 통치자들에게 영적 경배를 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영적 왕국의 임무를 확장시키는 일을 함에서, 언젠가는 그 통치자들이 신자가 될지도 모를 그러한 땅에 있는 정부의 물리적인 무력을 너희가 사용해서도 안 된다.

178:1.4 (1930.1) 형제신분과 봉사는 왕국 복음의 모퉁이돌이기 때문에, 전진하고 있는 문명의 입장에서 볼 때, 왕국에서의 아들관계는 너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상적인 시민이 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영적 왕국의 사랑의 부름은 믿지 아니하고 투쟁적인 세상 왕국 시민들의 증오에 가득한 충동에 대하여 효력적인 파괴자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할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 각자 삶의 체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인 사심-없는 사회봉사를 통하여 너희가 그들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면,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물질적 성향의 자녀들은 너희가 소유한 영적 빛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178:1.5 (1930.2) 너희는 필사자이고 물질적인 사람으로서, 진정 이 세상 왕국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선한 시민이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늘왕국의 영적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너희는 신앙으로-계몽되고 영으로-해방된 하늘의 왕국의 자녀로서,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하느님께 대하여 지켜야하는 이중적인 책임에 마주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세 번째의 거룩한 책무; 하느님을-아는 신자들의 형제신분에 대한 봉사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맡고 있는 것이다.

178:1.6 (1930.3) 너희는 현세의 통치자들을 경배해서는 안 되며, 영적 왕국의 축진을 위해 현세적인 힘을 사용해서도 안 되지만; 너희는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똑같이 사랑하는 봉사로 올바른 사명활동의 자세를 현시하여야 한다. 왕국 복음에는 막강한 진리의 영이 함께 하고 있으며, 바로 이 영을 내가 모든 육체에게 부여줄 것이다. 영의 열매들, 너희의 진지하고도 사랑에 찬 봉사는 어두움 속에 있는 종족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며, 이 진리의 영은 너희의 힘을 배가시키는 지레 받침이 될 것이다.

178:1.7 (1930.4)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통치자들을 다룰 때 지혜를 나타내고 총명성을 드러내 보여라. 사려 깊은 분별력으로, 사소한 논쟁들을 억제하고 하찮은 오해들을 푸는 일에 너희 자신이 숙달되어있음을 보여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우주의 통치자들에 대한 너희의 영적 충성에서의 부족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려고 애쓰도록 하라. 너희는 항상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178:1.8 (1930.5) 너희는 왕국의 깨우친 자녀들이 된 결과로, 세속 정부에 속한 가장 뛰어난 시민들이 되어야만 한다; 이 땅에 있는 정부의 통치자들은 하늘왕국의 복음을 믿게 된 결과로, 시민 관련사들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통치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에 대한 사심-없는 봉사의 자세와 하느님께 대한 이성적인 경배는 왕국을 믿는 모든 자들을 훌륭한 세상 시민이 되게 하며, 반면에 정직한 시민으로서의 태도와 현세적 의무에 대한 진지한 헌신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소명에 의해 보다 쉽게 하늘왕국 안에서 아들관계에 이르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178:1.9 (1930.6) 세상 정부의 통치자들이 종교적 독재자들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찾아나서는 한, 이 복음을 믿는 너희들에게는 오직 고난과 박해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전하는 바로 그 빛은 물론이고, 너희가 이 왕국 복음을 위하여 수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그 태도까지도, 결국에는 모든 세계를 깨우치고 정치와 종교가 점차 분리되도록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왕국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면, 언젠가는 모든 나라들이 놀랄만한 새로운 해방과 지적인 자유와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178:1.10 (1931.1) 이 기쁨과 해방의 복음을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 곧 다가올 박해 속에서도 너희는 강성해질 것이며 왕국은 번영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국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호의적으로 말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왕국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면, 너희는 곧 중대한 위험에 처할 것이다. 평화와 번영의 시기일지라도 왕국에 신실하도록 노력하라. 사랑 넘치는 단련이 안일주의에 젖어있는 너희 혼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되어 있으니, 너희를 감독하는 천사들이 너희를 거친 길로 인도하도록 유도하지 말라.

178:1.11 (1931.2) 너희는 이 왕국 복음—하느님과 아들관계의 신앙을 실현화하는 최극의 기쁨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최극의 욕망—을 전파하도록 위임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 한 가지 의무에 대한 너희의 헌신을 방향전환 하는 어떤 유혹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풍성한 사랑스런 영적 사명활동과 깨우쳐 주는 지적인 교제 그리고 향상시켜 주는 사회봉사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하되; 그러나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어떤 노력, 혹은 그것들 전체를 위한 일일지라도 그것들로 복음 전파를 대신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들 막강한 사명활동은, 살아있는 진리의 영으로서, 그리고 영으로-태어난 사람의 신앙이 영원한 하느님과의 살아있는 동료관계에서의 확신을 부여하는 그러한 개인적 실현으로 인하여, 왕국을 믿는 사람의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여전히 더욱 막강하고 숭고한 사명활동과 변환의 사회적 부산물이다.

178:1.12 (1931.3) 너희는 민간 정부의 힘에 의해서 또는 세속적인 법을 제정함으로써 진리를 전파하거나 정의(正義)를 확립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는 있으나, 결코 그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긍정적인 형태로 가르쳐준 인간 평등의 대(大)계명 즉: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도 그들에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178:1.13 (1931.4) 왕국을 믿는 사람이 민간 정부에서 일하도록 요청을 받게 되면, 그가 그러한 정부에 속한 현세의 시민으로서 그러한 봉사를 하도록 용납하라, 그렇지만 그의 시민 봉사에서 모든 평범한 시민관계의 특색들이 필사 사람의 마음과 영원한 하느님의 내주하는 영의 고귀한 관계적-연합의 영적 깨우침으로 인하여 증진되었음을 드러내어야만 한다.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우월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자격을 갖추 수 있다면, 너희는 혹시라도 너희 가슴 속에 있는 진리의 뿌리가, 영적 교제와 사회적 봉사의 병합이라는 생명의 물이 부족하여 죽어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물어보아야만 한다. 하느님의 아들관계라는 의식은, 것처럼 인간 개인성의 모든 선천적인 힘에 대한 막강한 자극의 소유자가 된, 모든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의 일생 봉사 전체를 힘차게 고무시켜야만 한다.

178:1.14 (1931.5) 너희는 피동적인 신비주의자나 생기 없는
금욕주의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심지어 생활
필수품마저 마련해 주리라는 허구적인 섭리를 무기력하게
신뢰하는, 공상가와 유랑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실수를 범하는 필사자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너그러워야
하고, 무지한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인내심이 있어야 하며,
화가 날 때 참아야 하지만; 그러나 정의(正義)를 지키는데
있어서는 용맹스러워야 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강해야 하며, 땅 끝까지 이르도록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178:1.15 (1931.6) 이 왕국 복음은 살아있는 진리이다. 그것은 반죽
속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고, 겨자 씨 낱알과 같음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왔다; 이제 내가 선언하겠는데,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의 씨앗과 같으며, 대대로 똑같은
살아있는 씨앗으로 남아있으면서, 뒤이어지는 각
세대마다 독특한 요구와 조건에 대한 새로운 적응에서의
경로 안에서 새로운 현시활동과 수용될 수 있는 성장으로
어김없이 스스로를 펼치는 씨앗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
왔던 계시는 살아있는 계시이며, 나는 그것이 영적 성장,
증가 그리고 적응하는 발전의 법칙에 따라 각각의 세대와

각각의 개별존재마다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갈망한다. 이 복음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면서 반드시 증가하는 활력을 보여야만 할 것이며, 더욱 깊은 영적 힘을 들어내 보여야만 한다. 복음이 단순하게 거룩한 기억, 나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단순한 전통이 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178:1.16 (1932.1) 그리고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의 권위에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강력하게 거부한바 있는 새로운 빛을 그들에게 제안하였을 뿐이다. 우리는 오직 그들이 가르치고 보호한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진리에 대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불충실함을 경고함으로써 그들을 비난하였을 뿐이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확립된 영도자들과 인지된 통치자들이 직접적으로 방해할 때에만 그들과 충돌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나, 그들은 우리를 죽이고자 한다. 너희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임무만을 받았음을 명심해라. 너희는 옛 방법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진리의 누룩을 옛 믿음의 한 가운데에 숨씨있게 뿌려야 한다. 진리의 영이 스스로의

일을 하도록 용납하라. 진리를 경멸하는 자들이 너희를 몰아세울 때에만 논쟁을 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고집불통의 불신자가 너희를 공격할 때에,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만든 진리를 힘차게 지키며 굳건히 서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178:1.17 (1932.2) 변화무쌍한 일생을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사람들,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도 분투하지 말라. 악의에 가득 차서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에게도 자비를 보여라. 아버지의 왕국에 있는 형제신분 안에서, 너희 자신이 충성스러운 시민, 올바른 장인, 칭찬할 만한 이웃, 헌신적인 동포, 납득하는 부모, 그리고 진지한 신자임을 보이라. 그리하면 나의 영이 너희에게, 지금 그리고 세상 끝날 까지도 있을 것이다.

178:1.18 (1932.3) 예수가 가르침을 마치셨을 때에는 거의 한 시가 되었을 무렵이었으며, 그들은 다윗과 그의 연관-동료들이 그들을 위하여 점심을 준비해 놓은 야영지로 곧 돌아갔다.

제 2 장. 점심 식사 후

178:2.1 (1932.4) 오전에 주어진 주(主)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분이라도 이해를 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청중들 가운데에서 그리스인들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이해하였다. 열 한 명의 사도들마저도 미래의 정치적 왕국들과 왕국 신자들의 뒤이어지는 세대에 대한 주(主)의 암시에 어리둥절하였다. 예수를 헌신적으로 따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이 세상 사명활동 끝이 다가오는 것과, 복음 활동의 연장되는 미래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서로 이어지도록 맞출 수가 없었다.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비극적인 어떤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지만, 그들은 그러한 다가오는 재난과 그리고 그것을 개의치 않는, 주(主)의 변함없이 유쾌한 태도는 물론, 시간에서의 광대한 뻗침에 걸쳐 확대하고 그리고 뒤이어지는 이 땅의 수많은 현세적 왕국과의 관계를 포용하면서, 그가 반복하여 하늘왕국의 미래 활동행위에 대한 암시했던, 그의 오전 강연과도 서로 이어지도록 맞출 수가 없었다.

178:2.2 (1932.5) 모든 사도들은 나사로가 베다니로부터 서둘러 피하였다는 사실을 이 날 정오에 알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와 그의 가르침들을 근절시키려는 유대인 통치자들의 냉혹한 결의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178:2.3 (1932.6) 다윗 세베대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비밀요원들의 작업을 통하여, 예수를 체포하여 죽이려는 계획의 진행에 관해 충분히 기별을 받고 있었다. 그는 이 음모에서 유다의 역할에 대해서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이 정보를 제자들은 물론 다른 어떤 사도에게 결코 드러내지 않았다. 점심 식사가 끝난 직후에 그는 예수를 옆으로 모시고 가서 그가 이미 알고계신지를 대담하게 질문하였다—그러나 그는 더 이상의 질문을 이어가지 못하였다. 주(主)는 그의 팔을 붙잡고 그의 질문을 제지하며 말했다; “그렇다, 다윗아, 나는 그것에 관해 모두 안다, 그리고 네가 안다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하여라. 오직 네 자신의 가슴에서 하느님의 뜻이 끝에 가서는 지배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178:2.4 (1933.1)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듣고 예루살렘을 피하라는 아브너의 말을 전하려고 필라델피아로부터 메신저가 도착하였기 때문에 다윗과의 대화는 더 계속되지 못하였다. 이 전령은 아브너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기 위하여 서둘러서 필라델피아로 출발하였다: “네 일을 계속하라. 만일 내가 너희와 육신적으로 이별하게 되면, 영으로 너희에게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끝날 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178:2.5 (1933.2) 이즈음에 빌립이 주(主)께 와서 물었다: “주(主)여, 유월절이 임박하였는데, 저희가 그것을 먹을 준비를 어디에 하기를 원하십니까?” 빌립의 질문을 들은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 오거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밤 함께 먹을 만찬에 대해서 지도하겠다. 유월절에 관해서는 먼저 이 일을 마친 후에 생각해야 할 것이다.”

178:2.6 (1933.3) 주(主)가 이 일들에 대하여 빌립과 말하는 것을 들은 유다는 대화를 자세히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빌립과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다른 편으로 가서 주(主)와 이야기하는 동안, 가까이에서 있던 다윗 세베대가 유다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었다.

178:2.7 (1933.4) 예수는 세 사도들에게 말했다; “지금 곧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을 걸면 그를 따라가라. 그 사람이 너희를 어떤 집으로 인도하거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주(主)가

사도들과 만찬을 드실 손님 접대실이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아라. 너희가 그렇게 질문하면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준비를 갖추어놓은, 넓은 다락방을 그 집주인이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178:2.8 (1933.5) 그 사도들이 도시에 도착하였을 때, 성 문 근처에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그의 뒤를 쫓아 요한 마가의 집으로 갔으며, 그 소년의 아버지는 그들을 맞이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은 다락방을 보여주었다.

178:2.9 (1933.6)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전 날 오후 동안 주(主)와 요한 마가가 따로 그 언덕에 있을 때 그들 사이에서 있었던 합의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수는 사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마지막 만찬이 무슨 일이 있어도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였으며, 유다가 그들이 만날 장소를 미리 알게 되면 자신을 체포하도록 적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요한 마가와 비밀리에 약속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유다는 예수와 다른 사도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도 만나는 장소를 알지 못하였다.

178:2.10 (1933.7) 다윗 세베대는 유다와 함께 처리해야 할 일들이 무척 많았기 때문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을 무척

따라가고 싶어 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쉽게 막을 수 있었다. 유다가 식량을 위한 얼마만큼의 돈을 다윗에게 건네주자, 다윗은 그에게 말했다; “유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에게 실제로 필요가 생기기 전에 돈을 미리 내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유다는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하였다: “그렇구나 다윗, 나는 그것이 현명하리라 생각한다. 사실, 예루살렘의 뒤숭숭한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모든 돈을 너에게 넘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저들이 주(主)를 배척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내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는 경우에도, 너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178:2.11 (1934.1) 그리하여 다윗은 사도들의 현금 기금 전부와 모든 예금한 돈의 증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사도들은 다음 날 저녁까지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178:2.12 (1934.2) 세 명의 사도들이 돌아와서 만찬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예수께 고한 것은 4시 반경이었다. 주(主)는 즉시 열 두 사도들 앞에 서서 베다니로 가는 오솔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그 열 두 사도 전부와 함께 한 마지막 여행이었다.

제 3 장. 만찬 장소로 가는 길에서

178:3.1 (1934.3) 겟세마네 공원과 예루살렘 사이를 오가면서 기드온 계곡을 지나가는 군중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서,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을 만나기 위해 올리브 산 서쪽 능선을 따라 걸어갔다. 전날 밤에 예수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머무셨던 장소에 가까이 오자, 그들은 서서 침묵 속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무의식중에 잠시 멈추었다. 약간 이른 시간이었고, 예수가 해가 진후에 도시에 들어가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연관-동료들에게 말했다:

178:3.2 (1934.4) “내가 너희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앉아서 쉬도록 하여라. 지난 수년 동안 나는 너희와 형제로 지냈으며, 하늘의 왕국에 관한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쳤고 그곳의 비밀을 계시해 주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땅에서의 나의 사명활동과 관련하여 정말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였다.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 되었으며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체험에 동참하였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셔왔던 일로 내가 머지않아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한동안 경고하였던 것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왕국의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였다. 그러한 목적에서 가버나움의 동산에서 너희를 따로 세웠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였던 체험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준비를 해야만 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가 나를 대표하고 내가 시작한 일들을 완결하라고 너희를 보내고자 한다.

178:3.3 (1934.5) “너희는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한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슬픔에 가득 차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 도시의 멸망에서 너희가 죽고 그로서 왕국 복음 선포가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였다. 또한 그들이 사람의 아들을 잡으러 올 때 너희가 쓸데없이 자신을 드러내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나는 가야하지만, 내가 나사로에게 사람의 복수를 피하여 살아남아서 하느님의 영광을 알리도록 하라고 지도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떠난 후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가 신성한 계획을 꺾을 수는 없다. 그들이 너희까지 죽이지 못하도록 각별히 조심하라. 너희 혼이 영의 힘으로 용감하게 복음을 수호해야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나는 사람의 손에 의한 보호가 필요치 않다; 하늘의 군대들이 지금도 가까이 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아주 곧 닥칠 일들에 복종해야만 한다.

178:3.4 (1934.6) “이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 언제까지나-나아가는 하늘의 왕국 안에서 끝없이 봉사하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이미 성취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 아버지의 우주와 내 우주 안에는 거할 곳이 많으며, 그곳에는 하느님이 지으신 도시와 그리고 일생의 습성이 진리 안에서 정의(正義)와 기쁨인 그러한 세상에 대한 계시가, 빛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만 한다. 나는 이 땅에 있는 너희에게 하늘의 왕국을 가져왔다, 그러나 내가 선언하건데, 신앙으로서 그곳에 들어가고 진리의 살아있는 봉사로서 그곳에 머무르는

너희 모두는 높은 곳에 있는 세상으로 반드시 올라갈 것이며 우리 아버지의 영적 왕국 안에서 나와 함께 앉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너희 자신을 단단히 대비하고 나와 함께 시작하였던 일을 마쳐야만 한다. 너희는 먼저 많은 시련을 거치고 많은 슬픔을 견디어내야 하며—이들 시험은 이제 우리에게 닥쳤다—내가 땅에서의 아버지의 일을 완결하고 바야흐로 그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의 일을 완결하고나서, 나의 기쁨으로 나아올 것이다.”

178:3.5 (1935.1) 주(主)가 말씀을 마치시고 일어나시자, 그들은 모두 그를 따라 올리브 산을 내려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 세 사도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좁은 길을 따라 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군중들이 그들을 밀쳤지만,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또한 그 누구도 하느님의 아들이 그의 선택된 왕국의 대사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필사자 회합을 향해 가는 그의 길을 지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사도들도 또한 자기들 중의 한 사람이 이미 주(主)를 적의 손에 넘기는 배반하는 음모에 가담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

178:3.6 (1935.2) 요한 마가는 도시 안에 들 때까지 모든 길을 따라왔고, 그리고는 그들이 성문에 들어서자, 다른 길로 급히 달려갔으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도착했을 때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그들을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제 179 편 최후의 만찬

179:0.1 (1936.1) 이 목요일 오후 시간 중에, 빌립이 임박한 유월절에 관하여 주(主)에게 상기시키면서 그 축하에 대한 그의 계획을 물어보았을 때, 그는 다음 날인 금요일 저녁에 먹도록 되어 있는 유월절 만찬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전날 정오 무렵부터 유월절 경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때부터 시작하여 하루를 계산하였으므로, 이것은 토요일 유월절 만찬이 금요일 밤 자정이 되기 전 어느 시간에 먹게 됨을 의미하였다.

179:0.2 (1936.2) 그러므로 사도들은 유월절을 하루 일찍 경축할 것이라는 주(主)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납득하지 못했다. 그들 중 몇 사람은 그가 금요일 밤 유월절 만찬 전에 체포될 것을 아시고 그로 인하여 오늘 목요일 저녁에 특별한 만찬을 함께 나누시기 위해 자기들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은 단지 정상적인 유월절 경축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179:0.3 (1936.3) 사도들은 예수가 지난 여러 차례의 유월절의 경우에 양을 잡지 않고 경축하였던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유대교 체계 가운데 희생물을 제공하는 어떤 예배봉사에도 한 번도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유월절 양을 먹는 자리에 손님으로 초대되신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자신이 주인이었을 때에는 양고기를 대접하지 않았다. 더구나 유월절 밤에 양이 생략된 것을 보았어도 사도들에게 큰 놀라운 일이 아니었으며, 게다가 이번 만찬이 하루 일찍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양고기가 빠진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

179:0.4 (1936.4) 요한 마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환영 인사를 받은 후에, 사도들은 곧 다락방으로 올라갔으며 한편 예수는 뒤에 남아 마가의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

179:0.5 (1936.5) 주(主)께서 오직 열 두 사도들과 이 절기를 경축하고자 한다는 것이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시종을 들기 위해 기다리는 하인은 아무도 없었다.

제 1 장. 우선권에 대한 욕심

179:1.1 (1936.6) 요한 마가가 위층으로 안내하자, 사도들은 매우 크고 넓은 방에 만찬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으며, 빵과 포도주와 물 그리고 향신료들이 식탁 한 쪽 끝에 모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빵과 포도주가 있는 쪽을 제외한 긴 식탁 둘레에는 살림이 넉넉한 유대인 가정에서 유월절을 경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과 같이 바로 그렇게 비스듬히 기댈 수 있는 열 세 개의 의자들이 배열되어 있었다.

179:1.2 (1936.7) 이 다락방으로 들어온 열 두 사도들은 바로 문 곁에 놓여 있는 물 항아리들과 대야들 그리고 수건들이 자기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이 봉사에 수종을 들 하인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요한 마가가 나가자마자 각자 서로 쳐다보면서 누가 우리 발을 씻어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속으로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하인으로서

그런 행동을 할 사람으로는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각자가 마찬가지로 생각하였다.

179:1.3 (1937.1) 그들이 그들의 가슴 안에서 곰곰이 따지면서 그곳에 잠시 서있는 동안, 식탁의 자리 배치를 둘러보면서, 오른 쪽에 다른 의자 하나와 같이 있는 주인의 높다란 침대 의자와 그리고, 이 둘째로 명예로운 주인의 오른쪽 자리의 맞은편까지 식탁 둘레를 돌며 정돈된 열한개의 의자를 주목하였다.

179:1.4 (1937.2) 그들은 주(主)가 곧 올라오실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먼저 앉아 있어야 좋을지 아니면 자리를 지정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지 난처한 상태에 있었다. 그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유다가 주인 석 왼편에 있는 명예 석으로 다가갔으며, 마치 우선권이 있는 손님인 것처럼 그곳에 기대어 누우려고 하였다. 유다의 이러한 행동은 즉시로 다른 사도들 간에 뜨거운 경쟁이 일어나게 하였다. 유다가 명예 석을 차지하자마자 요한 세베대는 주인석 오른쪽에 있는 그 다음으로 좋은 자리에 앉고자 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유다와 요한의 이와 같은 자리 선택에 매우 화가 나서, 성이 난 다른 사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식탁을 두벽두벽 걸어 돌아가서 요한 세베대가 선택한 반대편에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갔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높은 자리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할 생각을 하였으며,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단순히 형제들의 보기 흉한 자부심에 대해 항의하는 것뿐 아니라, 또한 예수가 왔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을 보시고 그렇게 주제넘게 스스로 명예를 높이는 자를 대신하여, 자기를 더 높은 자로 부르기를 바랐다.

179:1.5 (1937.3) 그렇게 하여 가장 높은 자리와 가장 낮은 자리가 배정되었고, 나머지 사도들은 혹은 유다 쪽으로 혹은 베드로 쪽으로 자리를 잡아서 모두 앉게 되었다. 그들은 말굽-쇠 모양의 식탁 옆으로 놓여 있는 비스듬한 의자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주(主)의 오른 편에는 요한이 앉았고; 왼편에서부터 유다, 시몬 젤로떼, 마태, 야고보 세베대, 안드레, 알패오의 쌍둥이 아들들, 빌립, 나다니엘, 도마, 시몬 베드로가 앉았다.

179:1.6 (1937.4) 그들이 모세 이전에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때를 상고해 보는 전통적 관례를 경축하기

위해, 적어도 영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모인 것이 사실이다. 이 만찬은 그들의 예수와의 마지막 회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장엄한 환경 속에서, 유다를 선두로 하여 사도들 모두가 명예와 우선권 그리고 개인적 고취를 구하는 오랜 성향에 또다시 무릎을 꿇게 되었다.

179:1.7 (1937.5) 주(主)가 문 앞에 나타났을 때에는, 그들은 여전히 성이 나서 서로 대꾸하는 말투에 몰입되어 있었고, 잠시 머뭇거리시면서 주(主)의 얼굴에서 실망하는 표정이 서서히 떠올랐다. 그는 아무 말씀도 없이 자리에 앉았으며, 그들의 자리 배정을 바꾸지도 않았다.

179:1.8 (1937.6) 이제 그들의 발이 아직 씻기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찬을 나눌 준비가 모두 갖추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는 그 어떤 기쁜 기미도 없었다. 주(主)가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느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참을 만큼 충분히 감정을 통제하여, 자신들의 생각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불평하는 시선을 주고받는 데에 빠져 있었다.

제 2 장. 만찬을 시작함

179:2.1 (1937.7) 주(主)는 자신의 자리에 가서 앉으신 후, 잠간 동안 아무런 말도 없었다. 예수는 그들을 모두 둘러보신 후 미소를 띠심으로써 긴장이 감도는 분위기를 바꾸시면서 말했다: “나는 이 유월절 만찬을 너희와 함께 먹는 것을 얼마나 고대하였는지 모른다. 나의 때가 가까이 이른 것을 알기에,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한 번 더 너희와 식사를 같이하고자 하였으며, 이 만찬을 너희와 함께 오늘 밤 나눌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내일에 관하여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고, 그 분의 뜻을 내가 집행하려고 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목적을 내가 완결한 후에 그가 내게 주실 왕국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앉을 때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다시 먹지 않을 것이다.”

179:2.2 (1938.1) 사도들이 포도주와 물을 섞은 후에 예수께로 잔을 가져왔으며, 다대오로부터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동안 그대로 들고 계셨다. 그리고 감사 기도가 끝나자 말했다: “이 잔을 가져가서 너희들끼리 나누어라. 잔을 받거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찬이며 그 때문에 포도 열매로부터 나온 것을 내가 너희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할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시
왔을 그때는 다가오는 왕국에서 있을 것이다.”

179:2.3 (1938.2) 예수는 자신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아셨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때가 이미 이르렀음과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명활동이 거의 완결되었음을 아셨다. 주(主)는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이미 계시하였고 그의 자비를
인류에게 나타내어,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니
하늘과 땅이 있는 모든 힘과 권한을 받는 것 까지도,
성취하였음을 아셨다. 마찬가지로, 가롯 유다가 그 날 밤에
자신을 적에게 넘겨주기로 충분히 결심한 것도 알고
계셨다. 이러한 배반행위는 유다가 한 일이었지만, 그 일은
또한 루시퍼와 사탄 그리고 암흑의 영주인
칼리가스티아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충분히 깨닫고
계셨다. 자신을 영적으로 전복시키려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육신적으로 죽이려는 자들은 더욱
그러하였다. 주(主)는 오직 한 가지 염려밖에 없었으며,
그것은 자신이 택한 무리들의 안전과 구원이었다.
그리므로, 주(主)는 아버지께서 만물을 자신의 권한

아래에 두셨음을 충분히 아시고, 이제 형제다운 사랑의 비유를 연출하려고 준비하였다.

제 3 장. 사도들의 발을 씻으심

179:3.1 (1938.3) 유월절 음식의 첫 잔을 마신 후에는 주인이 식탁에서 일어나 손을 씻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다. 이어서 음식을 먹은 후 두 번째 잔을 든 후에는 모든 손님들이 그와 같이 일어나서 손을 씻어야 했다. 사도들은 주(主)가 의례적으로 손을 씻으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첫 잔을 다 마신 후에 그가 식탁에서 일어나, 물병들과 대야 그리고 수건들이 놓여있는 문 쪽으로 조용히 가셨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무척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주(主)가 겹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신 후에 발 씻는 대야에 물을 붓기 시작하는 것을 보자, 그들의 궁금증은 경악으로 변하였다. 조금 전에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를 거절하고, 식탁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보기 흉하게 다투었던 이 열 두 사도들이, 예수가 시몬 베드로가 앉아 있는 만찬석의 가장 낮은 자리 옆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쪽으로 가서서 마치 하인과 같은 자세로 무릎을 꿇으시고 시몬의 발을 씻을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해 보라. 주(主)가 무릎을 꿇자 열 두 사도들은 마치 한 사람처럼 동시에 일어났다; 심지어 배반자 유다도 자신의 파렴치 행위를 잠시 잊어버리고 놀람과 경의 그리고 경탄을 발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동료 사도들과 함께 일어섰다.

179:3.2 (1938.4) 일어서 있는 시몬 베드로는 올려다보시는 주(主)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수는 아무 말씀도 없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태도는 시몬 베드로의 발을 정말로 씻고자 한다는 것을 뚜렷하게 나타내었다. 육신으로의 의지는 약했지만 여하튼, 베드로는 주(主)를 사랑하였다. 이 갈릴리 어부는 예수의 신성을 전심으로 믿으면서 그리고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충분히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후로 주(主)의 신성한 속성을 실제로 의심한 적은 결코 없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를 존경하고 명예로 받들었기 때문에, 자기 앞에서 천한 하인과 같은 태도로 무릎을 꿇으시고 마치 하인이 하는 것처럼 자기 발을 씻으시려는 예수의 생각에 그의 혼이 의분을 느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베드로가 이윽고 주(主)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이성을 찾게 되자, 모든 동료사도 모두가 가슴속에 느끼고 있는 것을 말하였다.

179:3.3 (1939.1) 크게 당황했던 얼마간의 순간이 지나자, 베드로가 말했다, “주(主)여, 실제로 제 발을 씻으려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는 베드로의 얼굴을 올려다보시면서 말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너는 충분히 납득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이후로는 이들 모든 일의 의미를 알 것이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길게 숨을 쉬고서 말했다, “주(主)여, 당신께서는 결단코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사도들도 예수가 그들 앞에서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려는 것을 허용하기 거부한다는 베드로의 단호한 선언에 동조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179:3.4 (1939.2) 이 특별한 장면의 극적인 호소에 처음에는 가롯 유다의 가슴도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자만심이 강한 그의 지성이 그 광경에서 심판에 미치자, 이런 겸손의 태도는 예수가 이스라엘의 해방자로서 결코 자격이 없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이며, 이것으로 주(主)가 가지신 목적을 저버리기로

결정한 것에는 그 어떤 실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여겼다.

179:3.5 (1939.3) 그들이 모두가 숨을 죽이고 놀라서 서 있을 때
예수가 말했다: “베드로야, 내가 선언하건대, 만일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서 너와 나는
그 어떤 상관도 없을 것이다.” 이 선언을 들었을 때, 예수가
자기 발 앞에서 계속 무릎을 꿇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베드로는 자신이 존중하며 사랑하는 분의 소망에
따르겠다는 맹목적인 묵인의 결정들 중 하나를 내렸다.
주(主)가 제안한 이 봉사의 상연에는 주(主)의 일과
관련하여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어떤 의미심장한 것이
첨부되어 있다는 것이 시몬 베드로에게 비로소 떠오르자,
그는 예수께서 자기 발을 씻도록 허락하려는 생각으로
이어지며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특징인 성급한
몸가짐으로 말했다: “주(主)여, 그렇다면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

179:3.6 (1939.4) 주(主)는 베드로의 발을 씻을 준비를 하면서
말했다: “이미 정결한 사람은 단지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밤에 나와 함께 있는 너희는 정결하지만—모두 다는

아니다. 그러나 너희 발에 묻은 먼지는 나와 함께 식탁에 앉기 전에 씻겨야만 하겠다. 그 외에,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봉사를 베푸는 것은 이제 곧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새 계명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로 보여주고자 함이다.”

179:3.7 (1939.5) 주(主)는 아무 말씀도 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식탁을 도시면서 열 두 사도들의 발을 씻었으며 유다도 빼놓지 않았다. 열 두 사도들의 발을 다 씻으신 예수는 겹옷을 입으시고 자신의 주빈석으로 돌아왔으며,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사도들을 둘러보신 후에 말했다:

179:3.8 (1939.6)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가 실제로 납득하느냐? 너희는 나를 주(主)라고 부르고, 내가 정말로 그러하니, 너희는 잘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주(主)가 너희 발을 씻었다면, 너희들도 기꺼이 서로의 발을 씻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나? 자신의 형제들이 서로에게 하기를 기꺼워하지 않는 봉사를 주(主)는 것처럼 기꺼워하며 하였다는 이 비유로부터 너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하인은 주인보다 크지 않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의 나의 일생 속에서 봉사의 길을 너희가 보았으며,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자비로운 용기를 갖게 될 너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영적 왕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밀이, 물질세계 안에서 힘을 얻는 방법과 같지 않다는 것을 너희는 왜 이처럼 느리게 깨닫는다는 말이냐?

179:3.9 (1940.1) “오늘 밤 내가 이 방에 들어올 때,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자랑스러워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나의 식탁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지를 가지고 서로 다툰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명예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찾는 것이며, 하늘왕국의 대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의 식탁에는 높고 낮은 자리가 없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겠느냐? 내가 너희 각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명예로 여기는 내 옆자리는 너희가 하늘의 왕국에 섰을 때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이방의 왕들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한편으로는 때때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은인이라 불린다는 것을 너희도 알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왕국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중에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아래 사람이 될 것이다; 반면에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자는 남을 봉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식탁에 앉은 자와 시종드는 자 중에 누가 더 높으냐? 보통대로 하면 식탁에 앉은 자가 더 높지 않으냐? 그러나 너희는 내가 시종드는 자로서 너희와 함께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일 아버지의 뜻을 행함에서 나와 함께 기꺼이 하인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는 앞으로 이루어질 왕국에서, 미래의 영광 안에서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힘을 가지고 나와 함께 앉아 있을 것이다.”

179:3.10 (1940.2) 예수가 말씀을 마치시자, 최후의 만찬의 다음 차례를 위해 알패오 쌍둥이가 쓴 나물과 말린 과일 조각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다.

제 4 장. 배반자에게 한 마지막 말씀

179:4.1 (1940.3) 사도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들었지만, 주(主)의 유쾌한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곧 대화를 나누게 되었으며, 오래지 않아서 평상시와 똑같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특별한 행사에 걸맞은

쾌활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진행되었다. 시간이 조금 흘러서 식사 순서가 반쯤 지났을 때, 예수는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말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만찬을 나누기를 얼마나 갈망하였는지를 너희에게 말해 왔었고, 어둠의 악의 기세들이 사람의 아들을 죽이기로 어떻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를 알기에, 내일 밤 이 시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므로, 나는 유월절 하루 전인 오늘 은밀한 이 방에서 너희와 함께 만찬을 가지기로 결정하였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반복하여 말해왔으며, 이제 내 때가 이르렀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저버리고 나의 적들의 손에 나를 넘길 필요는 없었다.”

179:4.2 (1940.4) 열 두 사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발 씻는 비유와 뒤이어진 주(主)의 강연 때문에, 자아-주장과 자아-확신을 이미 모두 잃어버렸기에,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황한 음성으로 더듬거리면서 “그게 저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들이 모두 묻고 난 후에 예수가 말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 가운데 하나가 반역자가 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혼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데 실패한 자의 가슴속에 감추어진 악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영적 몰락에 앞서서 일어나는 지적인 자부심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여러 해 동안 같이 하던 나의 친구가, 지금 나의 빵을 먹는 자가, 지금도 그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그면서도, 나를 저버리려고 한다.

179:4.3 (1940.5) 그리고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자, 그들은 모두 "그게 저입니까?"라고 다시 묻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주(主)의 왼쪽에 앉아있는 유다도 따라서 다시 물었다. "그게 저입니까?" 예수는 나물 담긴 접시에 빵을 찢어서 유다에게 주면서 "네가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유다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예수의 오른 편에 기대고 있던 요한은 더욱 가까이 기대면서 주(主)께 물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의 믿음을 믿을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는 그 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대답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으며, 내가 적신 빵을 그에게도 주었다." 그러나 주인이 적신 빵을 왼편 옆에 앉은 사람에게 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주(主)가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눈치 채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행동과 연관된

주(主)의 말씀들의 의미를 따끔하게 의식하였으며, 자기가 배반자라는 사실을 그의 형제들이 지금 마찬가지로 알게 되지 않을까 하여 두려워지기 시작하였다.

179:4.4 (1941.1) 베드로는 말이 나왔던 것으로 인하여 매우 흥분하였으며, 식탁 위로 몸을 기울여가며, 요한에게 다그쳐 물었다. “그게 누구인지 주(主)께 물으라, 만일 네게 말씀하였다면 누가 배반자인지 내게 말하라.”

179:4.5 (1941.2) 예수는 그들의 속삭이는 말들을 그치게 하면서 말했다: “이러한 악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슬프고, 이 시간까지도 진리의 힘이 악의 속임을 이길까 바랐지만, 진리에 대한 진지한 사랑에서의 신앙이 없이는 그러한 승리는 얻지 못한다. 이번, 우리의 마지막 만찬에서 이들 일을 말하려 하지 않았지만, 이들 슬픔들에 대하여 너희에게 경고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그렇게 준비하기를 갈망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떠난 후에, 내가 이 모든 악한 음모를 이미 알고 있었고, 나를 배반하는 것에 대해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로지

바로 앞에 놓인 유혹과 시험에 대비하여 너희가 힘을 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79:4.6 (1941.3) 이렇게 말씀한 예수는 유다 쪽으로 기대시면서 말했다: “네가 하려고 결정한 것을 행하라, 속히 행하라.” 이 말씀을 들은 유다는 식탁에서 일어나 황급히 방을 떠났으며, 마음속에 결심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다가 예수와 대화를 나눈 후에 서둘러 나가는 것을 본 다른 사도들은 그가 아직도 돈주머니를 지참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만찬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 또는 주(主)가 시키시는 다른 용무를 위해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79:4.7 (1941.4) 예수는 이제 유다가 배반자가 되려는 것에서 돌아서게 하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셨다. 그는 열두 명으로 시작했고—지금은 열 하나를 가졌다. 그가 처음으로 뽑은 사도들은 여섯 명이었으며, 유다가 첫 번째 선택으로 임명된 자들 중의 하나였지만, 주(主)는 지금까지, 바로 이 순간까지도, 그를 내내 받아들였고, 다른 사람들의 평화와 구원을 위해 일하였던 것과 똑같이,

그를 정화하고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다.

179:4.8 (1941.5) 예수는 이 만찬에서 부드러운 에피소드들과 온화한 접촉으로 저버리는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무리 재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리고 또 아무리 친절한 영으로 전달해도, 사랑이 일단 실제로 죽어버리면, 훈계는 대개 미움을 가중시킬 뿐이며, 사악한 결심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구체적 투사를 행동으로 옮기도록 불을 댕길 뿐이다.

제 5 장. 기념 만찬을 확립함

179:5.1 (1941.6) 그들이 "축복의 잔"인 세 번째 포도주 잔을 예수께로 가져오자, 의자에서 일어나셔서 손으로 잔을 잡으시고 축복하며 말했다; "이 잔을 가져다가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도록 하라. 이것은 나를 기념하는 잔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은혜와 진리의 새로운 섭리시대를 축복하는 잔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신성한 진리의 영이 증여되고 그리고 사명활동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영원한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로운 형식으로 마실 때까지 너희와 함께 다시 이 잔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179:5.2 (1942.1) 사도들 모두는 심오한 존경과 완전한 침묵 속에서 이 축복의 잔을 나누면서, 일상의 것이 아닌 무엇인가가 발산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옛 유월절은 그들 조상이 민족적인 노예상태에서 벗어나 개별존재의 자유를 창발하였음을 기념하는 것 이었다; 주(主)는 이제, 노예가 된 개별적인 창발을 형식주의와 이기주의의 사슬로부터, 살아 계신 하느님의 해방된 신앙의 아들의 형제신분과 동료관계에서의 영적 환희를 가져다주는, 새로운 섭리시대의 상징으로서 새로운 기념 만찬을 제정하고 있었다.

179:5.3 (1942.2) 그들이 이 새로운 기념의 잔을 다 마셨을 때, 주(主)는 빵을 들어 올리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시고 그들에게 돌리라고 지도하며 말했다: “이 기념하는 빵을 가져다 먹어라. 내가 너희에게 내가 생명의 빵임을 말해왔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빵은 하나의 선물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되어진 생명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아들 안에서 계시되었듯이,

참으로 생명의 빵이다.” 그들이 기념의 빵, 필사 육체의 모습으로 육신화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의 상징을 나누어 먹고 나자, 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았다.

179:5.4 (1942.3) 이 기념 만찬을 제정하면서, 주(主)는 늘 하던 대로 비유와 상징에 의존하였다. 그가 상징들을 이용한 것은, 그의 후계자들이 정교한 해석을 덧붙이고 자신의 말들에 대해 확정된 의미를 부과하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어떤 위대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뒤 잇는 세대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결정화하고 그리고 전통과 독단론의 죽어있는 사슬로서 자신의 영적 의미가 묶이는 일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의 전 인생 사명활동을 통하여 유일한 의식(儀式), 즉 성찬을 제정하면서, 예수는 몸소 정교한 정의(定意)를 밝히기보다는 자신의 의미들을 제시하려고 고심을 쏟았다. 그는 정교한 형식을 제정함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교통에 대한 개별적인 개념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것을 형식적으로 속박함으로써 신자의 영적 상상력을 제한하게 되는 것도 원치 않았다. 그는 오히려 다시 태어난 인간의 혼을, 새롭고 살아있는 영적 해방으로

이루어진 즐거움의 날개 위에서 자유롭게 해주려고 애를
쓰셨다.

179:5.5 (1942.4) 새로운 기념 성찬을 그렇게 제정한 주(主)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지나온 여러
세기 동안, 육신으로 그 마지막 밤에 그가 제시한 단순한
영적 상징성 안에서 그가 뚜렷하게 밝힌 소망을, 정교한
해석으로, 그리고 거의 수학적 정교함을 지닌 굳어진
공식에 대한 종속으로 몰락시켜 효과적으로 좌절되게
하고 말았다. 예수의 가르침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이 보다
더 전통-표준화된 것은 없다.

179:5.6 (1942.5) 이 기념 만찬이 . 아들을-믿는 그리고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로 함께 나누어 질 때, 신성한 현존의 의미에
대한 사람의 그 어떤 미숙한 오해도, 그 상징성과 연관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
주(主)는 실제로 현존하기 때문이다. 기념 만찬은 믿는
자와 미가엘의 상징적인 만남이다. 너희가 그렇게 영을-
의식하게 되면, 아들은 실재적으로 현존하며, 그의 영은
내주하는 아버지의 단편과 형제우애를 나눈다.

179:5.7 (1942.6) 그들이 잠시 동안 묵상의 시간을 가진 후에, 예수는 계속하여 말했다; “너희가 이 일들을 할 때, 너희와 함께 살았던 나의 일생을 회고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땅에 살며 너희를 통하여 계속 봉사한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향유하라. 너희 가운데에서 개별적으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너희 모두가 형제처럼 되어야 한다. 많은 신자들 무리를 받아들일 만큼 왕국이 확장되어도, 너희는 그 무리들 사이에서 우선권을 추구하거나 위대함에 대한 다툼을 마찬가지로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179:5.8 (1943.1) 이 막강한 행사는 한 친구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 만찬이나 건물 어느 부분에도 거룩한 형식이나 예식적인 헌납은 아무 것도 없었다. 기념 만찬은 성직자에 의한 비준이 없는 것으로 제정되었다.

179:5.9 (1943.2) 기념 만찬 제정을 그렇게 마친 예수는 사도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 일을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면서 그것을 행하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기억할 때, 먼저 육체 속에서 살았던 나의 일생을 돌이켜 보고, 내가 한 때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회상한 후에, 너희 모두는 언젠가 아버지의 영원한 왕국에서 나와 함께 저녁을 먹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신앙으로 식별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유월절 기념, 증여되었던 내 일생,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기념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 모든 육체에게 나의 진리의 영이 부어지는 것에 대한 기억이다.”

179:5.10 (1943.3) 그리고 그들은 시편 118편을 다함께 부름으로써, 새로운 기념 만찬의 창시와 연결되는, 오래된 그러나 피 흘림이 없는 유월절 축하를 끝냈다.

제 180 편 고별 강연

180:0.1 (1944.1) 최후의 만찬을 마치면서 시편을 찬송한 후에, 사도들은 예수가 즉시 야영지로 돌아가시리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는 더 앉아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주(主)는 말했다:

180:0.2 (1944.2) “내가 돈주머니나 전대도 없이 너희를 내보내면서 심지어는 여분의 옷도 가지지 못하게 하였던 때를 너희가 잘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 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음을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에게 고난의 시대가 닥쳐올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군중들의 선한 뜻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

돈주머니가 있는 자는 그것을 지참하고 다니게 하라.
너희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는,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너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나는 평화를 주려고 왔지만,
그것은 얼마 동안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180:0.3 (1944.3)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이제
이르렀으며,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나의 친구들아, 내가 잠시 동안 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곧 나를 찾으러 다니겠지만,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가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나의 일을 다 완결한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의 일을 다 완결한 후에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게로 오게 될
것이다. 나는 곧 너희를 떠나겠고, 너희는 나를 이 땅에서
볼 수 없게 되겠지만,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왕국으로
너희가 올라올 때, 너희 모두는 다가오는 시대에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제 1 장. 새 계명

180:1.1 (1944.4) 잠시 동안 자유로운 대화를 나눈 후에 예수가 일어나셔서 말했다; “너희가 기꺼운 마음으로 서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비유를 너희에게 보여주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기를 갈망한다고 말하였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려하므로 그것을 주려고 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한 계명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자녀들의 편에서의 그러한 진지한 헌신에도 전적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너희가 믿음을 지니고 있는 형제신분의 왕국 안에서 더욱 큰 사랑의 실천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을 알게 될 것이다.

180:1.2 (1944.5) “나는 새로운 이 계명을 너희에게 주면서, 너희 혼에게 어떤 새로운 짐도 더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고, 너희 가슴이 친구들에게 애정을 쏟는 환희를 깨달음으로써 새로운 즐거움을 체험하게 한다. 나는, 비록 흘러나오는 슬픔을 참고

있지만, 너희와 너희 친구들에게 나의 애정을 줌으로써,
최극 기쁨을 체험하고자 한다.

180:1.3 (1944.6)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청하였을 때, 나는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애정을 너희 앞에 높이 들어 나타내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친구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을 너희가 기꺼이 행하기만 하면 너희는 계속하여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주(主)라고 불렀지만, 나는 너희를 하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만약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단지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될 것이며, 아버지께서 내게 계시하는 것에 대하여 언제까지나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180:1.4 (1945.1) “너희가 나를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도 또한 너희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희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너희에게 나타냈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 너희 친구들에게 사랑 넘치는 봉사를 통한 열매를 맺도록 내가 너희를 사도로 임명하였다. 아버지와 나는 너희와 함께

일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나의 계명을 너희가 오직 순종하기만 한다면, 너희는 기쁨의 신성한 충만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180:1.5 (1945.2) 만일 너희가 주(主)의 기쁨을 서로 나누고자 한다면, 너희는 그의 사랑을 서로 나누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너희가 그의 봉사를 나누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사랑의 체험이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너희를 구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옛 세상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 것이다.

180:1.6 (1945.3) 명심하라: 예수가 원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충성이다. 희생에 대해 스스로 의식하는 것은 사랑 넘치는 봉사를 최극 기쁨으로 그렇게 만들게 하는 애정, 전심어린 애정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의무라는 관념은 너희가 하인의-마음에 있음을 뜻하며 그리하여 너희가 친구로서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봉사하는 강력한 전율이 없다. 우정의 충동은 의무에서 나오는 모든 신념들을 초월하며, 그리고 친구를 위한 친구의 봉사는 결코 희생이라고 부를 수 없다. 주(主)는 사도들에게 그들이 하느님의

아들들임을 가르치셨다. 주(主)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으며, 그리고 지금 떠나가기 전, 그들을 자신의 친구라고 부르신다.

제 2 장. 포도나무와 가지들

180:2.1 (1945.4) 그리고 나서 예수는 다시 일어나셔서 사도들에게 계속 가르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그 가지들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오직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될 것을 내게 원한다. 오직 열매 풍성함을 증가시키려고 포도나무의 가지를 치는 것이다. 내게서 나온 가지들 중에서 아무 열매도 없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실 것이다.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들은 더욱 많은 열매를 맺도록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씻으실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이야기해 왔던 말을 통하여 이미 깨끗하지만, 그러나 깨끗한 것이 계속되어야만 한다. 너희는 내 안에, 그리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해야만 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다면 죽게 될 것이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봉사에서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아무 것도 맺을 수 없다.

나는 실제 포도나무이며, 너희는 살아있는 가지라는 것을 기억해라. 내 안에 살고 또 내가 그 안에서 사는 자는 영의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며, 이 영적 수확이 거두어지는 최극 기쁨을 체험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나와 이 살아있는 영적 관계를 유지한다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 있다면, 너희는 나와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살아있는 나의 영이 네게 주입되어 그로서 너희가 무엇이든지간에 내 영의 뜻을 물을 수 있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청원을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 안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포도나무에 많은 살아있는 가지들이 있고, 모든 가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음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맺는 가지들—내가 저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을 세상이 보게 될 때, 모든 사람은 너희가 정말로 나의 제자들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80:2.2 (1945.5)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온 것을 너희가 행한다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사랑

안에 언제까지나 거해 왔던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180:2.3 (1946.1)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 조상들의 “포도나무가지에서 솟아오르는 줄기”일 것이라고 오랫동안 가르쳤으며, 이러한 전통적인 가르침을 기념하여 헤롯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포도와 그것이 붙어 있는 포도나무가지의 큰 상징이 장식되어 있었다. 주(主)가 이 날 밤 그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동안 사도들은 모두 이러한 것들을 기억했다.

180:2.4 (1946.2) 그러나 기도에 관한 주(主)의 가르침들이 잘못 해석되면서 크게 슬픈 일이 나중에 발생되었다. 주(主)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억되고 이어서 사실 그대로 기록되었다면 이러한 가르침들에 관한 어려움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이 만들어질 때, 신자들은 결국에는 기도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일종의 최극의 마술이라도 되는 듯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직한 사람들이 여러 세기 동안 이 걸림돌에 걸려서 그들의 신앙이 난파되는 일을 계속해 왔다. 기도가 너희의

길을 얻으려는 진행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진행 순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인지할 것이며 실천할 것인가를 배우는 체험이라는 사실을 신자들의 사회에서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너희의 뜻이 그의 뜻과 참으로 일치할 때, 너희는 합치된 뜻에 의해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응답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조금도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러한 결합된 뜻은 포도나무의 생명이 살아있는 가지들 속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흐르는 것처럼, 예수에 의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효력이 발휘된다.

180:2.5 (1946.3) 신성과 인간성 사이에 이 살아있는 연결이 존재하고 있을 때는, 만일 인간성이 지각없이 그리고 모르는 체하며 이기적 편안함과 그리고 헛된 영광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오직 하나의 신성한 응답이 있을 수 있다; 곧 살아있는 가지의 줄기에서 영의 열매를 더 많이 더욱 증가하여 맺는 것이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살아있을 때는, 모든 청원에 오직 하나의 응답이 있을 수 있다: 곧 포도가 더욱 증가되어 맺는 것이다. 사실상, 가지는 오로지 열매를 맺는 것, 포도를 맺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오직 영의 열매를 맺으려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곧 자신이 하느님에게서 사랑을 받은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나아가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만 한다.

180:2.6 (1946.4) 그리고 아버지의 단련의 손이 포도나무에 가해지는 것은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가지들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현명한 농부는 오직 죽어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만 잘라버린다.

180:2.7 (1946.5) 예수는 자신의 사도들에게 조차도, 기도가 영이 지배하는 왕국 안에서 영으로 태어난 신자들의 기능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이끄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제 3 장. 세상의 적대감

180:3.1 (1946.6) 열 한 사도들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강연에 대한 토의를 끝내기도 전에 주(主)는 자기 때가 곧 이르게 되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좀 더 말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비치시며 말했다;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었을 때, 세상의 적대감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라. 연약한 가슴을 가진 신자들이 너희를 배반하고 왕국의 적들에게

가담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이미 나를 미워했었다는 것을 회상해야 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기에 사랑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 에 있지만, 너희 삶은 세상과 같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선택받은 이 세상에게 다른 세상의 영을 나타내려고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항상 기억해라: 하인은 주인보다 크지 않다.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다면, 너희도 또한 핍박할 것이다. 내 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슬렀다면, 너희 말도 또한 그들에게 거슬릴 것이다. 그들이 나와 또한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복음을 위하여 많은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시련을 견디어 낼 때, 나도 그렇게 하늘왕국의 복음을 위하여 너희보다 먼저 고통 받았음을 회상해야 할 것이다.

180:3.2 (1947.1) "너희를 공격할 많은 사람들은 하늘의 빛에 대해 무지하지만, 지금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만일 우리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들이 선고판결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생소한 일들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들은 빛을 알면서 감히 그것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은 자신의 태도에 대하여 아무런 변명할 말이 없다. 나를 미워한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다; 받아들인다면 너희를 구원하게 될 그 빛이, 고의로 거부되었을 때, 오직 그 때에만 너희는 죄인이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미워하다니 내가 저들에게 무슨 일을 하였단 말이나? 이 세상에서의 교제와 하늘에서의 구원을 그들에게 제안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성서에 '아무 이유 없이 저들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기록된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180:3.3 (1947.2) "그러나 나는 너희들만을 외롭게 이 세상에 남겨 두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간 후에 내가 속히 너희에게 영 조력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 무리들 속에서 내 역할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에게 계속하여 진리를 가르치고,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180:3.4 (1947.3) "너희 가슴이 근심하도록 버려두지말라. 너희는 하느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는 것에 계속 머무르라. 내가 너희를 떠날지라도, 너희로부터 멀리 있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우주 안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만일 이것이 참말이 아니라면, 너희에게 그 장소에 대하여 거듭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 빛의 세계들, 장차 너희도 올라오게 될, 아버지의 하늘 안에 있는 장소들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이들 장소로부터 이 세상에 왔으며, 이제 위에 있는 구체들에서 내가 아버지의 일로 돌아가야만 할 시간이 왔다.

180:3.5 (1947.4) "만일 내가 그렇게 너희에 앞서 아버지의 하늘왕국 안으로 가면,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느님의 자녀 된 필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장소 안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틀림없이 부르러 보낼 것이다. 나는 너희를 떠나야만 하지만, 영으로 너희에게 제시되어 있을 것이며, 내가 이제 막 더욱 큰 자신의 우주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로 가려는 것처럼, 너희가 내 우주 안에 있는 내게로 올라왔을 때, 너희는 결국에는 개인으로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참되며 영속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비록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180:3.6 (1947.5) 예수가 자리에 앉으시자, 도마가 일어나서 말했다; “주(主)여, 당신이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당연히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밤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180:3.7 (1947.6) 도마의 말을 들은 예수는 대답했다; “도마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아버지를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먼저 나를 발견한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와 함께 살았고 지금 나를 보고 있으니, 그로써 너희는 나를 알고 있는 것이다.”

180:3.8 (1947.7) 그러나 이 가르침은 대부분의 사도들 특히 빌립에게는 너무 어려운 것이었으며, 그는 나다니엘과 몇 마디 말을 한 후에 일어나서 말했다; “주(主)여,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말씀한 모든 것들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180:3.9 (1947.8) 빌립이 말을 마치자 예수는 말했다; “빌립아, 내가
너와 그토록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겠느냐? 내가 다시 분명히 말하겠는데: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전하는 말들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나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말하였고 나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며, 나는 그렇게
행하였다.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며 나를 통해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는 내
말을 믿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온 바로 그 일생을
보고—행한 일을 보고—나를 믿으라.”

180:3.10 (1948.1) 주(主)가 기운을 차리려고 물을 마시러 옆으로
가자, 열 한 사도들은 이 가르침에 대하여 열띠게
토론하였으며, 예수가 돌아와서 그들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을 때, 베드로는 긴 연설을 입 밖으로 내놓으려는 참이었다.

제 4 장. 약속된 조력자

180:4.1 (1948.2) 예수는 계속하여 가르치셨다: “내가 아버지께로 갔을 때, 너희를 위해 이 세상에서 내가 한 일을 아버지께서 충분히 승인한 후에, 그리고 나 자신의 권역에 대한 최종 주권을 받은 후에, 나는 나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다: 내 자녀들을 세상에 홀로 남겨두면서, 그들에게 다른 선생을 보내주는 것이 저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면, 내가 모든 육체에게 진리의 영을 쏟아 부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영이 이미 너희 안에 있으니, 그 날이 되면, 너희가 지금 아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선물은 살아있는 진리의 영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처음에는 이 영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겠지만, 빛의 자녀들은 모두 그를 기쁘게 그리고 전심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아는 것처럼 그가 올 때 너희는 이 영을 알게 될 것이며, 너희는 이 선물을 너희 가슴속에 받아들일 것이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아무 도움과 인도함이 없이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님을

깨달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외롭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내가 오직 육신으로 너희와 같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 너희뿐만 아니라 나의 현존을 원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 각자와 동시에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내가 육신으로는 그렇게 너희를 떠나고 그로서 더욱 좋게 그리고 더욱 충만하게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할 수도 있음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180:4.2 (1948.3) “몇 시간 후면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내가 새로운 선생,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도 가슴속으로 여전히 나를 알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직접 너희와 함께 살았지만, 그때에는 너희 안에 살 것이다; 내가 영의 왕국 속에서 너희의 개인적 체험을 함께 나눌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너희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내 안에 감추어져 있으면서 또한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였고 그의 말씀을 지켰으며;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가 그의 영을 내게 주신 것같이, 나도 나의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증여할 이 진리의 영이 너희를 안내하고 위로할 것이며 결국에는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180:4.3 (1948.4)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제 곧 우리에게 닥칠 시험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새 날이 오면, 너희에게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도 내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온 이들 선물은 아버지와 내가 너희의 눈앞에서 한 개인, 사람의 아들로써 일하였던 것처럼 서로 하나가 되어 일할 것이다. 그리고 친구인 이 영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180:4.4 (1948.5) 주(主)가 잠시 동안 말씀을 멈추시자 유다 알패오는 이 때 자신과 그의 형제가 예수께 공개적으로 일찍이 말한, 몇 안 되는 질문중의 하나를 대담하게 던졌다. 유다가 말했다; “주(主)여, 당신은 항상 친구처럼 우리와 함께 지냈습니다; 영으로 하신다는 것을 제켜두고, 당신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자신을 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만일 세상이 당신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당신에 관하여 확신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180:4.5 (1949.1) 예수는 그들 모두를 내려다보시고 미소를 지으시며 말했다; “얘들아, 나는 이제 떠나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이곳에 있는 동안 육체적으로는 나를 잠시 동안 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 안 있어서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이 물질적 육체를 제외하고는 나와 똑같은 것이다. 새로 오는 이 선생이 너희 각자와 같이 가슴속에서 살게 될 진리의 영이며, 그로서 빛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가까워질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방법으로 내 아버지와 내가 너희들 각자의 혼 속에서 살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내가 지금껏 늘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신들의 체험으로 그러한 실제 사랑을 만들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살 수 있다.”

180:4.6 (1949.2) 유다 알패오는 주(主)의 말씀을 충분히 납득하지는 못하였지만, 새로운 선생에 대한 약속을 파악하였으며, 자신의 질문이 만족한 답변을 얻었다는 것을 안드레의 얼굴 표정에서 눈치 챘다.

제 5 장. 진리의 영

180:5.1 (1949.3) 예수가 신자들의 가슴속으로 보내시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새로운 조력자는 진리의 영이다. 이 신성한 자질은 진리의 서신이나 율법이 아니고, 진리의 형식이나 표현으로서 기능하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선생은 진리에 대한 신념, 실제 영적 차원에 있는 참된 의미에 대한 인식이요 확신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선생은 살아있고 성장하는 진리, 확대되고, 펼쳐지는 그리고 적응성이 있는 진리이다.

180:5.2 (1949.4) 신성한 진리는 영으로-식별 되는 것이며 살아있는 실체이다. 진리는 신성의 실현과 그리고 하느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의식하는 그러한 높은 영적 차원에서만 존재한다. 너희는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를 실천할 수 있다; 너희는 혼 속에서 진리가 자라는 것을 체험할 수도 있고 마음속에서 그 깨우침이 주는 해방을 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는 진리를 인간 행위의 공식, 규범, 교리 또는 지적 원형틀 안에 가두어 둘 수는 없다. 너희가 신성한 진리를 인간적 정형화로 담아내려고 할 때, 그것은 급속히 죽는다. 감금된 진리를 죽은 뒤에 구출하려는 것은, 기껏해야 지능화작용으로 영화롭게 된

지혜가, 특이한 형태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결국 생겨날 수 있을 뿐이다. 정적인 진리는 죽어있는 진리이다, 그리고 죽은 진리는 오직 이론으로 유지될 수 있다. 살아있고 살아나게 하는 진리는 역동적이며, 그리고 오직 그것만이 인간 마음속에서 체험적 실존을 향유할 수 있다.

180:5.3 (1949.5) 지능은 조화우주 마음의 현존에 의해 비추어지는 물질적 실존에서 성장하며 나온다. 지혜는, 의미에서의 새로운 차원으로 높아지고 그리고 지혜 보조자의 우주 자질의 현존에 의해 활성화되는 지식에 대한 의식으로 이루어진다. 진리는 오직 우주 인식의 초(超)물질 차원에서 기능하는 존재, 그리고 진리의 실현 후에, 활성화된 영이 그들의 혼속에 거하고 군림하도록 허락하는 존재인, 그러한 영이-수여된 존재에게만 체험되는 영적 실체 가치이다.

180:5.4 (1949.6) 우주 통찰력의 참된 자녀는 모든 지혜로운 말 속에서 살아있는 진리의 영을 찾는다. 하느님을-아는 모든 개별존재는 신성한 달성의 살아있는-진리 차원에 이르기까지 지혜를 꾸준히 높인다; 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하는 혼은 항상 살아있는 진리를 지혜의 죽어있는

차원으로 그리고 단지 드높여진 지식의 권역으로 끌어 내린다.

180:5.5 (1949.7) 진리의 영에서의 초인간적 통찰력을 벗어 버렸을 때, 황금률은 높은 윤리적 행위 규칙에 지나지 않는다. 황금률이 글자 그대로 해석되면, 친구들에게 크나큰 반감을 주는 도구가 된다. 지혜의 황금률을 영적으로 식별하지 못하면, 너희가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충분하고 솔직한 진실을 너희에게 이야기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모두 솔직하게 동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희가 생각해내야만 할 것이다. 황금률에 대한 이러한 비(非)영적 해석은 말할 수 없는 불행과 끝없는 슬픔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180:5.6 (1950.1) 어떤 사람들은 황금률이 마치 인간 형제우애관계에서의 순수하게 지적인 확인으로 그것을 헤아리고 해석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 개인성의 부드러운 느낌에 대한 감정적 충족으로서, 인간관계에서의 이 표현을 체험한다. 다른 사람들은 동일한 이 황금률을 모든 사회적 관계를 재는 잣대, 사회

행위의 표준으로 여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문구 안에, 모든 형제우애에서의 관계에 대하여 도덕적 책무의 가장 높은 개념을 체현시킨, 어느 위대한 도덕 선생이 내린 적극적 훈령으로서 그것을 보고 있다. 그러한 도덕적 존재들의 삶 속에서 황금률은 그들의 모든 철학의 지혜로운 핵심이며, 범위가 된다.

180:5.7 (1950.2) 하느님을-아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의 믿음을 지닌 형제신분의 왕국에서, 이 황금률은, 그들이 자신들과 신자의 접촉하는 결과로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 자신을 자신들의 동료와 그렇게 관계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서, 하느님의 필사 자녀들이 주(主)의 이 권고명령을 바라보게 만드는, 보다 높은 차원의 해석위에서의 영적 실현의 살아있는 본질특성을 가지고 있다.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 종교의 본질이다.

180:5.8 (1950.3) 그러나 황금률에 대한 가장 높은 실현과 가장 진실한 해석은, 그러한 신성한 선언의 영구적이고 살아있는 실체에서의 진리의 영에 대한 의식에 있다. 이러한 우주관계의 법칙에서의 참된 조화우주 의미는

오직 그 자체의 영적 실현 안에서, 아들의 영에 의해서 필사 사람의 혼속에 내주 하는 아버지의 영에게 행위의 법칙을 해석하는 것으로 계시된다. 그리고 영에-인도된 그러한 필사자들이 이 황금률의 참된 의미를 실현할 때, 그들은 우호적인 우주 안에서 시민이 되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리고 영적 실체에 관한 그들의 이상은 예수가 우리 모두를 사랑하였던 것과 같이, 그들이 자기 동료들을 사랑할 때에만 만족될 것이며, 또한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실체이다.

180:5.9 (1950.4) 악에 저항하지 말라는 주(主)의 가르침과 실천 관행을 너희가 적절하게 납득하기를 소망하기 전에 먼저, 모든 하느님의 아들의 개별적 수용능력과 요구에 맞는 신성한 진리에서의 조화우주 적응성과 살아있는 융통성의 바로 이 똑 같은 철학이 이해되어야만 한다. 주(主)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영적 선언이다. 그의 철학에서의 물질적 암시마저도 그러한 것들의 영적 상관관계와 분리되어서는 도움이 되도록 고려될 수 없다. 주(主)의 권고명령에서의 영은 우주에 대한 모든 이기적 반응에 대한 무저항에 있으며, 동시에 참된 영적 가치들; 신성한 아름다움, 무한한 선, 그리고 영원한 진리—하느님을 아는

것과 점차 그와 같이 되는 것—의 정의로운 차원을
적극적이고 진보적으로 달성하는데 있다.

180:5.10 (1950.5) 사랑, 사심-없음은 진리의 영의 인도에 따라서,
여러 관계들을 항상 생생하게 재(再)적응하는 해석을
거쳐야만 한다. 사랑은 사랑 받는 개별존재에 대한 가장
높은 조화우주 선의 항상-변하고 확대되는 개념을
그것으로서 파악해야만 한다. 그리고 나서 사랑은 더
나아가서, 우주의 다른 시민에 대한 영으로-인도된 한
필사자의 사랑에서의 성장하고 살아있는 관계에 의해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다른 개별존재에 관하여,
바로 이 똑 같은 태도를 계속 가진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사랑의 적응 전체는 제시되어 있는 악의 환경과 신성한
운명의 완성에 대한 영원한 목적의 둘 모두에 비추어서
효과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180:5.11 (1950.6) 그러므로 우리는 황금률이나 무저항에 대한
가르침이 결코 독단론이나 교훈으로 적절하게 납득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지해야만 한다. 그것들은 오직
살아있는 그 자체로써, 한 인간존재와 다른 존재의

사랑하는 접촉을 지도하는 진리의 영의 살아있는 해석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달음으로서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180:5.12 (1951.1)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옛 종교와 새 종교의 사이에 있는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내 준다. 옛 종교는 자아-희생물을 가르쳤고; 새 종교는 오직 자아-잊어버림, 연관된 사회봉사와 우주 이해 속에서의 증진되는 자아-실현을 가르친다. 옛 종교는 공포를 인식함으로서 동기를 일으켰다; 새 왕국 복음은 진리에 대한 신념, 영원한 우주적 진리의 영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리고 경건이나 교리에서의 충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왕국을 믿는 자들의 일생의 체험 속에서, 살아 계신 하느님의 영으로-태어난 아들들의 특징인, 그러한 자발적이고 관대하며 진지한 우정이 빠져있는 것을 보상해 줄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전통이나 형식적인 경배의 의례적 체계도 자기 동료에 대한 진정한 연민의 모자람을 보상할 수 없다.

제 6 장. 떠나야 할 필요성

180:6.1 (1951.2)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마태가 주(主)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난 이후에, 그는 고별 강연을 계속하면서 말했다; “내가 떠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너희에게 닥칠 일들에 너희가 미리 대비하여 심각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당국자들은 다만 너희를 회당 밖으로 쫓아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경고하건데, 너희를 죽이는 자들은 그들이 하느님께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가 하늘의 왕국으로 인도한 사람에게 이들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아버지를 알기를 거절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나의 새 계명을 만일 너희가 지켜왔다면, 그들이 너희를 거부할 때 곧 나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너희에게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때가 지금 이른 것같이 너희의 때가 이르게 될 경우에,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나의 영이 나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함으로써 대담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그토록 분명하게 말한 것은 바로 이런 목적에서였다. 사람의 적대자는 바로 자기 집안에 있는

저들이 될 수도 있다고 너희에게 경고까지 하였다. 비록 왕국 복음이 개별 신자의 혼에게 반드시 위대한 평화를 주겠지만, 인류가 전심으로 나의 가르침을 기꺼이 믿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실천 관행이 확립될 때까지는 땅에 평화를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이다.

180:6.2 (1951.3)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되었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보면서, 너희 중에 아무도 '왜 우리를 떠나십니까?'라고 묻지 않는 것에 대해 내가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그러한 질문을 가슴속으로 하고 있음을 안다. 친구로서 친구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하겠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실제로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새로운 선생이 너희 가슴속에 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가 이 영 선생을 너희 혼 안에 살고 너희 영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도록 보낼 수 있기 전에, 이 필사 몸을 벗고, 높은 곳에서 내 자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려고 올 때, 그가 죄와 정의(正義)의 차이를 비쳐줄 것이며, 너희가 그것들에 관하여 너희의 가슴속에서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할 것이다.

180:6.3 (1951.4)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 아직 많이 있지만, 너희가 지금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지만, 진리의 영이 오면, 너희가 내 아버지의 우주 안에서 여러 거처를 지나는 동안 결국에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180:6.4 (1951.5) “이 영은 자신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것이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계시했던 것을 너희에게 선언하고, 다가올 것들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영은 나에게서 솟아나고 나의 진리를 너희에게 계시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 권역에서 소유하는 모든 것이 지금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선생이 내 것을 취하여 그것을 너희에게 계시할 것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180:6.5 (1952.1) “조금만 있으면 나는 잠시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 뒤에, 너희가 나를 다시 볼 때, 나는 이미 아버지께로 가는 도중에 있을 것이며 그래서 그 때에도 너희가 나를 보는 것은 오랫동안이 아닐 것이다.”

180:6.6 (1952.2) 그가 잠시 말을 멈추시는 동안, 사도들은 서로 이야기했다; “우리에게 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조금만

있으면 너희를 떠날 것이다'라고 하고,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되어도 그것이 오랫동안이 아니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도중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과 '오랫동안이 아니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려는지 납득할 수 없다."

180:6.7 (1952.3) 예수는 그들이 이렇게 묻는 것을 아시고 말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도중에 있을 것이라는 내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하여 너희들끼리 물어보느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처음에는 슬퍼하겠지만, 나중에는 이 일들이 이루어진 후에 그것들을 납득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너희가 기쁨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산통으로 괴로워하겠지만, 일단 아이를 낳고 나면,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음을 알고 기뻐하여 고통을 곧 잊게 된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내가 떠나가는 것에 대해 슬퍼하게 되겠지만, 내가 곧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고,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하느님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이 죽음을 이기는 바로 이 생명의 계시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까지 너희가 모든 요청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였다. 너희가 나를 다시 본 뒤에는, 너희는 또한 내 이름으로도 구하여도 되며, 그리하면 내가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180:6.8 (1952.4)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격언으로 가르쳤고 비유로 말하였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오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와 그의 왕국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려는 것은 아버지 자신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보다 충분하게 계시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필사 사람들은 영이신 아버지를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된 너희 눈에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너희가 영 성장 안에서 완전해지게 되면, 너희가 아버지 자신을 볼 것이다.”

180:6.9 (1952.5) 그의 말씀을 들은 열 한 사도들은 서로 말했다; “보라, 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한다. 주(主)가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자신이 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말하는가?” 그리고 예수는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 이 열 한 사도들은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의 개념에 오래-젖어온 그들의 관념에서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 믿을수록, 이 땅의 왕국이 영광스럽게 물질적으로 승리하는 것으로 여기는 깊은-뿌리박힌 개념은 갈수록 더욱 문제가 되었다.

제 181 편 마지막 훈계와 경고

181:0.1 (1953.1) 열 한 사도들에게 , 고별 강연을 마친 후에, 예수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들과 전체로서 혹은 개별존재들로서 관련이 있었던 많은 체험들을 자세히 말씀하였다. 마침내 이 갈릴리인 들은 그들의 친구요 선생님이 그들을 떠나려고 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였으며, 그리고 잠시 후에 그들과 다시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에 그들은 희망을 걸고 있었지만, 이 재회도 역시 잠시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잊으려하고 있었다. 사도들과 수제자들 대부분은 잠시 동안 (부활과 상승 사이의 짧은 기간) 돌아오시겠다는 이 약속이, 예수가 자신의 아버지와 짧은 회담을 위해서 떠나 계셨다가 그

후에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돌아오시는 것을 뜻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대한 그러한 해석은 그들의 선입관적인 믿음과 열렬한 희망에 따른 것이다. 그들의 일생 동안의 믿음과 소원 성취의 희망이 그렇게 부합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강렬한 기대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주(主)의 말씀의 해석을 찾는 일은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181:0.2 (1953.2) 고별 강연이 토론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후에, 예수는 지시를 하고 자신의 최종적인 훈계와 경고의 전달을 시작하기 위하여 사도들을 다시 부르셨다.

제 1 장. 마지막 위로의 말씀

181:1.1 (1953.3) 열 한 사도들이 자리에 앉은 후에 예수가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한에는, 너희 가운데 또는 온 세상 가운데 오직 한 개별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이 (육신의) 필사자 본성의 덮개 틀에서 해방되고 나면, 너희들 각자에게 그리고 왕국 복음을 믿는 다른 모든 신자들에게 영 내주자로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의 아들은 모든 참된 신자들의 혼 속에 영적 육신화가 되어갈 것이다.

181:1.2 (1953.4) "내가 너희 속에서 살고 너희를 통하여 일하기 위해 돌아오게 되면, 너희를 이 일생 동안 더 잘 인도할 수 있고 또한 하늘들의 하늘 안에 있는 미래의 일생에서 많은 거주지들을 거치면서 너희를 더 잘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영원한 창조 속에서의 생명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기적인 편안함 속에서 영원히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진리, 그리고 영광 속에서 끊임없이 진보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많고 많은 각각의 장소들은 정류장으로, 너희로 하여금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된 생(生)이다. 그리하여 빛의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에서 완전한 것처럼 그들도 그곳에서 영적으로 완전하게 되는 신성한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한다.

181:1.3 (1953.5) "내가 너희를 떠났을 때 너희가 나를 좇아오려거든, 내 가르침의 정신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내 일생의 이상에 따라 살도록 너의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라. 이렇게 하여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필연적으로 요청된 육신으로서의 내 본성적인 일생을
모방하려 하지 말라.

181:1.4 (1954.1)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너희들
소수들만이 나를 충분하게 받아들였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신들에게 부어주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새로운
선생을, 혼의 안내와 조언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마든지
깨우쳐지고 정화될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은 그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는
생명수의 우물이 될 것이다.

181:1.5 (1954.2)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려 함으로, 위로의
말을 주려고 한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간다;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나는 이들 선물을 세상에 주려고
만드는데—따져보면서—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각자에게 너희가 받아들일 모든 것을 주는 것이다. 너희
가슴이 근심하도록 버려두지말며,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며, 너희도 내 안에서 신앙으로 승리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였지만, 내가 아버지께 가기 전에 비록 잠깐

동안이기는 하겠지만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임을 확실히 말하였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 후에는, 내가 반드시 새로운 선생을 보내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가슴 안에 거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니 믿으라. 나는 너희를 깊은 애정으로 사랑하였으며, 너희를 떠나고 싶지 않으나,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내 시간이 이르렀다.

181:1.6 (1954.3) “너희가 박해를 받아서 널리 흩어지고 많은 슬픔으로 낙심한 후에도 이들 진리 가운데 어느 것도 의심하지 마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적의 손에 남겨둔 채로, 저마다의 자리로 각 사람이 흩어졌을 때, 너희가 나의 고립을 알 것이고, 너희가 세상에서 혼자 임을 느낄 때,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의 고립을 알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혼자 있는 적이 없었다; 나의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한 때에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해 왔던 이들 일들의 모든 것은, 너희가 평화를 가져야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욱 풍성하게 가지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시련을 겪을 것이나, 힘차게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에서 승리해

왔고 영원한 기쁨과 영속하는 봉사의 길을 너희에게 보여
왔다.”

181:1.7 (1954.4) 예수는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자기 동료
일꾼들에게 평화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물질
세계의 기쁨과 만족이라는 계층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아니하는 물질주의자들과 숙명론자들은 오직 두
가지의 평화와 혼의 위로만을 즐기고자 원할 수 있다:
필연적인 것은 마주할 것이고 그리고 최악의 것은 견디어
내겠다는 확고한 해결책을 지닌 금욕주의자이어야만
한다; 아니면 실제로는 결코 오지 않는 평화를 헛되이
동경하면서, 인간 가슴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그러한
희망에 언제까지나 빠져있는 낙천주의자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181:1.8 (1954.5) 어느 정도의 금욕주의와 낙천주의는 이 세상에서
사는 데, 봉사할 수 있지만, 그 어느 것도 하느님의 아들이
육신으로의 자기 형제들에게 주시는 장엄한 평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미가엘이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가 바로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필사자 일생을 사셨을 때 그의 혼을 채웠던 바로

그 평안이다. 예수의 평안은 육신으로 필사자의 일생을 사는 동안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방법을 충만하게 배우는 승리를 획득한, 하느님을-아는 개별존재의 기쁨과 만족이다. 예수 마음의 평안은 신성한 아버지의 슬기롭고 동정심 가득한 돌보심의 실재성에 대한 절대적인 인간 신앙 위에 기초했다. 예수는 이 땅에서 고생하였고, “고난의 사람”이라고 잘못 불렸지만, 이 모든 체험들 속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 있다는 충만한 확신 속에서 자신의 생의 목적을 진행할 수 있는 힘을 항상 주었던 그 자신감의 위안을 즐겼다.

181:1.9 (1954.6) 예수는 자신의 임무 완수에 단호하였고 불변하였으며 속속들이 헌신적이었지만, 무감각하고 냉담한 금욕주의자는 아니셨으며; 자기 일생의 체험에 있어서 밝은 측면을 항상 추구하였지만, 눈이 멀고 자아-기만적인 낙천주의자는 아니셨다. 주(主)는 자기에게 닥칠 일을 모두 아셨으며,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평안을 자기 친구들 각자에게 증여한 후에, “너희는 가슴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일괄되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

181:1.10 (1955.1) **예수의 평안은 시간과 영원에서의 그의 생애가 안전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모든-지혜, 모든-사랑, 그리고 모든-힘을 가지신 영이신 아버지의 관심과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믿는 아들의 확신과 평안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필사자 마음의 납득을 벗어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인간의 믿는 가슴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제 2 장. 개인적인 작별의 훈계

181:2.1 (1955.2) **주(主)는 사도들에게 집단으로 그의 작별 교훈들을 주고 그의 마지막 훈계를 주시는 것을 마치셨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별의 축복을 주심과 함께, 개별적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개인적 충고의 말씀을 각자에게 주기 위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였다. 사도들은 그들이 최후의 만찬에 참여할 때 처음 자리 잡았던 그대로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고, 주(主)가 식탁을 돌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였으며, 각 사람은 예수가 앞에 와서 말하는 동안 일어나 있었다.**

181:2.2 (1955.3) **예수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요한아, 너는 나의 형제들 중 제일 젊다. 너는 내 곁에 아주 가까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 동안 나는 너를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에게 주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였고,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어야만 하는 세 사람들 중의 하나로 안드레가 지명하였다. 이것 이외에도, 너는 나를 대리하여 행동해 왔으며 그리고 나의 이 세상의 가족들과 관련된 많은 일들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행동해 주어야만 한다. 요한아, 그리고 나는 내 육친의 가족들을 네가 계속하여 돌볼 것이라는 충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들의 현재 나의 임무에 대한 혼돈이 너로 하여금 그들에게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었으면 내가 행할 것이라고 네가 알고 있는 동정심과 조언과 도움을 그들에게 베푸는 것을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아야한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빛을 보게 되어 왕국으로 충분히 들어갈 때, 너희 모두가 그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동안, 요한아 나는 네가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환영하리라고 믿는다.

181:2.3 (1955.4)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의 땅에서의 생애를 마칠 시간들이 시작됨으로, 내 가족에 대한 어떤 전갈도 너에게 남길 수 있도록 가까이 곁에 남아 있어라. 아버지께서 내 손에 맡기신 일에 대하여, 내 육신의 죽음 이외는 다

완결되었으며, 나는 이 마지막 잔을 마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내 이 세상의 아버지가, 요셉이, 내게 남긴 의무들에 관하여는, 나의 일생 동안 이 의무들을 수행하였지만, 나는 이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나를 대신하여 네가 행해주도록 의지해야만 한다. 요한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하도록 너를 선택한 것은, 네가 제일 젊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81:2.4 (1955.5) “우리는 한 때 너와 네 형제를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너는 우리와 같이 과격하고 참을성 없이 시작하였다, 그러나 무지하고 경솔한 불신자들의 머리 위에 불을 내리게 하라고 내게 원하였던 이후로 너는 많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너는 아직도 더 많이 변화되어야 한다. 너는 내가 오늘 밤 너희에게 준 그 새 계명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네 형제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일에 네 평생을 바쳐라.”

181:2.5 (1955.6) 요한 세베대가 다락방에 서 있는 채로, 눈물이 그의 뺨을 흘러내리며, 주(主)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나의 주(主)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 형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가 대답하였다: “네가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는 것을 우선 배울 때, 그리고 시간과 영원에서 그들의 행복에 진실하게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후에. 너는 네 형제들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그러한 모든 인간 관심은 동정심과 사심-없는 봉사 그리고 아낌없는 용서를 납득함으로써 육성된다. 아무도 너의 젊음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나이는 흔히 체험을 대표하고. 인간 관련자들의 어떤 것도 실재적인 체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항상 적절한 고려를 하도록 권한다.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분투하라, 특별히 하늘왕국의 형제신분 속에 있는 네 친구들과 그렇게 하라. 그리고 요한아, 항상 명심하라, 사람들과 분투하지 마라. 너는 왕국을 위하여 승리할 것이다.

181:2.6 (1956.1) 그리고 나서 주(主)는 자기의 자리를 차례차례로 옮기면서 가롯 유다의 자리 옆에 잠시 멈추셨다. 사도들은 유다가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에 상당히 놀랐으며, 배반자의 빈자리 옆에 서신 채로 지으시는 예수의 슬픈 표정의 의의(意義)를 그들은 무척 알고 싶어 하였다. 그들 중 누구도, 아마도 안드레를 제외하고, 저녁 일찍 그리고

만찬동안 예수가 그들에게 암시하였지만, 그들의 회계원이 자기 주(主)를 배반하기 위하여 나갔다는 일말의 생각도 가지지 않았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으로, 그들 중의 하나가 자기를 배반할 것이라는 주(主)의 말씀을 당분간 까맣게 잊고 있었다.

181:2.7 (1956.2) **예수가 이제 시몬 젤로떼에게로 가셨으며 그는 일어서서 이 훈계를 들었다:** “너는 진실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러나 너를 이 하늘왕국의 아들로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노력했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모든 형제들도 같이 사랑한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고 왕국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지만, 이 왕국을 네가 좋아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 나는 네가 결국에는 내 복음의 영적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의 포교에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을 잘 알지만, 내가 떠난 후에 너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내가 근심한다. 나는 네가 비틀거리지 않을 것을 안다면 기쁨으로 향유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 네가 나의 사도임을 그만두지 않을 것을, 그리고 하늘왕국의 대사로서 기꺼이 처신할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181:2.8 (1956.3) 예수는 불같은 성격의 그 지사(志士)가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였을 때 애써 말씀을 멈추셨다: “주(主)여, 제 충성심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主)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일에 제 일생을 바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으며, 저는 결코 비틀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실망도 견디어냈으며, 당신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181:2.9 (1956.4) 그러자 예수는 시몬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말했다; “특별히 이러한 상황에서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 정말로 힘이 솟아나지만, 그러나 내 착한 친구여, 너는 네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다. 한 순간도 나는 네 충성심과 헌신을 의심해본 일이 없다; 나는 네가 나를 위하여 서슴지 않고 전쟁터에 나아가고 그리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음을, 다른 모든 사도들도 그렇게 하듯이, 내가 알지만” (그리고 그들은 모두 확실한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건설하기 위하여 내 제자들이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하였다. 시몬아, 내가 이것을 여러 번 말하였지만, 너는 진리와 마주하기를 거절하고

있다. 나는 나와 그리고 왕국에 대한 너의 충성심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내가 떠난 후에 네가 내
가르침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실패하였다는 것과, 너의
잘못된 개념들을 왕국 안에 있는 또 다른 실체에 그리고
관련자들의 영적 계층에 맞춰 조절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침내 깨어나면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181:2.10 (1956.5) 시몬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예수가 손을 들어
제지하고 말씀을 계속했다; “사도들 중에서 가슴으로
너보다 더 진지하고 정직한 사람은 없지만, 내가 떠난 후에
너보다 더 당황하고 낙담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네가
용기를 잃은 모든 상황에 내 영은 네 안에 거할 것이며,
형제들은 너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
시민관계와 아버지의 영적 왕국에서의 아들관계에 대하여
내가 가르쳐준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치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모두 깊이 새겨 두어라. 시몬아, 왕국의
형제신분 속에서 세상 권세에 대한 일시적인 의무와
왕국의 형제신분으로서 영적 봉사의 동시적 깨달음에
대한 나의 훈계를 필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꺼이 이행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에 네 일생을 바쳐라. 네가 진리의

영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현세의 통치자들이 오직
하느님께만 드려야 할 경의와 경배를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는 한, 이 땅에서의 시민관계와 하늘에서의
아들관계들의 요구 사이에 충돌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181:2.11 (1957.1) “시몬아, 그리고 이제, 네가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 그리고 네가 너의 의기소침을 떨쳐버린
후에 이 복음을 큰 힘으로 전파하고 나아갈 때, 너의 모든
낙심하는 시기에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으며, 그리고
바로 끝까지 계속해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너는 언제나 나의 사도일 것이다, 그리고 네가
기꺼이 영의 눈으로 보게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너의 뜻을 더욱 충만하게 복종시킨 후, 그러면 너는 나의
대사로서 다시 일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진리들에 대한 너의 이해가 느리다고 하여, 내가 너에게
부여한 권한을 아무도 너에게서 빼앗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몬아, 영으로 애쓰는 자들은 현재 그러한 왕국의 기쁨과
평안으로, 다가오는 왕국에서 영속하는 생명을 얻는 반면,
칼로 싸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다시 한 번 내가 너에게
경고한다. 그리고 네 손에 맡겨진 일이 이 땅에서

완결되어지게 되면, 시몬아, 너는 저곳에 있는 나의 왕국에서 나와 함께 앉을 것이다. 너는 네가 동경하던 ,그러나 이 생에서는 없는, 왕국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다. 나에 대한 그리고 내가 너에게 계시한 것들에 대한 믿음을 계속 하여라, 그러면 너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일 것이다.”

181:2.12 (1957.2) 예수가 시몬 젤로떼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레위 마태에게 걸어가서 말했다; “사도회의 재정 충당을 위하여 더 이상 수고하지 말라. 곧, 바로 곧 너희가 모두 흩어질 것이다; 심지어 너는 네 형제중 하나하고도 위안하고 떠받치는 관계적-연합을 누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 왕국 복음을 전도하며 앞으로 나아감에, 너는 스스로 새로운 연관-동료들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훈련기간 동안 둘 씩 짝지어 보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떠나고, 네가 충격으로부터 회복되고 나면, 너는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면서 세상 끝까지 혼자 가게 될 것이다: 신앙으로 다시 태어난 필사자들은 하느님의 아들들이다.

그러자 마태가 말했다; “그렇지만 주(主)여, 누가 우리를 보낼 것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드레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줄 것입니까?” 그 때 예수가 대답했다; “레위야, 그렇지 않다. 안드레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 이상 너희를 지도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선생이 오는 날까지 그가 정말로 네 친구로서 그리고 조연자 역할을 계속하겠지만, 그 때가 되면 진리의 영이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 일하도록 너희 각자를 멀리까지 안내할 것이다. 네가 세관에서 나를 처음 따랐던 날 이후로 너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이방인과 유대인이 형제우애에서의 관계적-연합 안에서 같이 지내는 형제신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 전에 더 많은 변화가 네게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네 유대인 형제들을 설득하는 일에 너의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라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로 힘차게 돌아서라. 레위야, 네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네가 형제들의 자신감과 애정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너를 사랑한다.” (열 사도들 모두는 주(主)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였다.)

“레위야,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네 형제들이 알지 못하는, 너의 염려와 희생과 수고를 나는 잘 알고 있으며,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그가 이곳에 없지만, 세리 대사였던 네가 이곳에서 왕국의 메신저들과 함께 나의 작별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니 내가 기쁨을 향유하게 되었다. 네가 영의 눈으로 나의 가르침의 의미를 식별하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리고 새로운 선생이 네 가슴속에 들어오면, 그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따르고, 용감하게 사람의 아들을 따랐으며 왕국 복음을 믿는 미움 받은 세금 징수원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었는지 네 형제들이—온 세상까지도—볼 수 있게 해주어라. 레위야, 내가 다른 갈릴리인 들을 사랑했던 것과 같이, 처음부터 너를 사랑하였다. 아버지도 아들도 편파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아서, 너의 사명활동으로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서 네가 차별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서 마태야, 너의 전체 미래 일생 봉사를 하느님이 개인들을 구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님을 모든 사람들에게서 보여주는 일에 전념하라; 그것은 곧 하느님의 시야 안에서는, 그리고 왕국의 동료관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모든 신자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181:2.15 (1958.2) 그리고 나서 예수는 묵묵히 서서 주(主)의 말씀을 듣는 야고보 세베대에게 걸어가셔서 말했다; “야고보야, 언젠가 너와 네 동생이 내게 와서 왕국 영예의 우선을 구하였을 때, 내가 그러한 영예는 아버지께서 증여하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네게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너희 둘이 그러겠다고 대답하였다. 비록 네가 그 때에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지금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네가 앞으로 겪어야 할 체험을 통하여 네가 그러한 봉사의 준비가 곧 될 것이다. 그 때에는 그러한 행동 때문에 네가 형제들을 화나게 했었다. 만일 그들이 이미 너를 충분히 용서하지 않았다면, 네가 내 잔을 마시는 것을 보게 될 때 너를 충분히 용서할 것이다. 네 사명활동 기간이 길든지 아니면 짧든지, 너는 끝까지 참아라. 새로운 선생이 오면, 연민과 아버지의 뜻에 완전한 순종과 나에 대한 숭고한 자신감에서 탄생된 동정심어린 관용의 자세를 배워라. 하느님을-아는 그리고 아들을-믿는 사도의 인간적 애정과 신성한 위엄이 병합되어진 그러한 것을 실증하는 것에 네 일생을 바치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는 태도를 통해서까지도 복음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너와 네 동생 요한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며, 둘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먼저 영원한 왕국에서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참된 지혜가 용기는 물론, 마찬가지로 사려 깊은 분별력을 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배우고자 한다면, 그것은 더욱 많이 너를 도울 것이다. 너는 네 공격적인 태도에 맞추어서 총명성도 배워야만 한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제자들이 아낌없이 생명을 바칠 장엄한 순간이 도래하겠지만, 평범한 상황 하에서는 기쁜 소식을 계속 전파하기 위하여 네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불신자들의 분노를 진정시키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이다. 네 힘이 닿는 대로, 너의 여러 행동간의 일생이, 혼들을 하늘왕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 열매를 맺도록 세상에서 오래 살아라, ”

181:2.16 (1958.3) 주(主)는 야고보 세베대에게 말씀을 마친 후에 안드레가 앉은 식탁 끝 쪽으로 걸어가셨으며, 자신의 신실한 조력자의 눈을 보시면서 말했다; “안드레야, 너는 하늘왕국의 대사들의 우두머리로서 활동하면서 신실하게 나를 대표하였다. 네가 비록 어떤 경우에는 의심도 하였고 또 어떤 때에는 위험스런 소심함을 현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연관-동료들을 대하면서 항상 진실로 옳게 행동하였으며, 탁월한 공정성을 보여주었다. 너와 네 형제들이 왕국의 메신저로 사도임명을 받은 이후로, 내가 선택받은 그들의 우두머리로 너를 지명한 것 외에는, 모든 그룹 행정-관리적 관련사들에서 내가 자아-관리로 움직여왔다.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도 대해서도 내가 네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도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하였던 것은 내가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들의 토의를 내가 진행할 수 있도록 영도자관계를 주기 위함이었다. 나의 우주 안에서 그리고 내 아버지의 우주들의 우주 안에서, 우리의 형제-아들들은 그들의 모든 영적 관계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취급되지만, 모든 집단적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명확한 영도자관계를 임명한다. 우리들의 왕국은 계층이 있는 세계이며, 둘 이상의 의지적 창조체들이 협력하여 활동하며, 그곳에는 항상 영도자관계의 권한이 제공되어있다.

181:2.17 (1959.1) “그리고 안드레야, 지금은 내가 임명한 권한에 의하여 네가 형제들의 우두머리이고, 나의 개인적 대리인으로 봉사해 왔고, 내가 곧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이러한 현세적이고 행정-

관리적인 관련사들에 관계된 모든 의무를 벗겨준다.
지금부터 너는 영적 영도자로서 네 자신의 힘으로
획득하고, 그리고 너의 형제들이 자유롭게 인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제들에 대하여 어떤 지배권도 행사할 수
없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 그들의 명확한 동의에
의해서 네게 지배권을 다시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
이후로 너는 형제들에게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할 것이다.
이 무리의 행정-관리적 우두머리로서의 의무로부터
면하여 준 사실이, 내가 육신으로 떠남과, 너희의 가슴속에
거하며 결국에는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게 될 새로운
선생을 보내는 때까지 그 사이에 있는 날, 바로 닥칠 시련
기간 동안, 확실하고 사랑하는 손으로 네 형제들을
결속하기 위하여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는 너의
도덕적인 의무를 어떤 방법으로든 경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 중
하나로서의 나의 현존에 발단이 되고 권한을 가졌던 모든
행정-관리적 의무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해주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에
오직 영적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다.

“만일 네 형제들이 네게 계속 그들의 조언자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면, 나는 네가 모든 현세와 영적 문제들에 있어서 진지하게 복음을 믿는 여러 종류의 무리들 사이에 평화와 조화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고 네게 명한다. 네 형제들 가운데에서 우애 있는 사랑의 실천적 측면을 증진시키는 일에 너의 남은 일생을 바쳐라. 세상에 있는 내 육친의 형제들이 이 복음을 충분히 믿게 될 때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서쪽의 그리스인들과 동쪽의 아브너에게 사랑과 공명정대한 헌신을 현시하라. 하느님의 아들 됨으로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의 사도들이 비록 곧 세상의 사방으로 흩어질지라도, 바로 앞의 시련기간 동안 너는 그들을 결속시켜야 하며, 그 격렬한 시험 기간 동안 너는 새로운 선생인 진리의 영이 도래하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면서, 나의 개인적 현존이 같이 있지 않을지라도 이 복음을 믿는 길을 배워야만 한다. 그래서 안드레야,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네게 맡겨지지 않더라도,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생과 조언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기 바란다. 이 세상에서 끝날까지 네 역할을 계속하라, 그러면, 그 후에는 네가 이 사명활동을

영원한 왕국에서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이 무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을 가지고 있다고 너에게 여러 번 말하지 않았느냐?”

181:2.19 (1959.3) 그리고 나서 예수는 알패오 쌍둥이에게 다가가셔서 둘 사이에 서신 후 말했다; “내 어린 아이들아, 너희는 나를 따르기로 선택한 세 그룹의 형제들 중의 하나이다. 너희들 여섯 명이 모두 육신으로 평화롭게 일을 잘하였으며, 너희들보다 더 잘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려운 때가 우리 목전에 이르렀다. 너희는 너희와 형제들에게 일어날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너희가 한 때 왕국의 일에 부름을 받았었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마라. 군중들을 다루어야 할 일이 당분간 없겠지만, 낙담하지 말고; 너희가 필생의 과업을 완결하였을 때에는 내가 너희를 높은 곳으로 받아들이겠으며, 너희는 그곳에서 너희 구원을 세라핌천사 무리들과 높은 하느님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평범한 일을 고양시키는 것에 너희 평범한 노역을 바치도록 하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필사 사람이, 하느님의 특별한 봉사임무에서 한 동안 일하도록 부름을 받아 일한 후에, 얼마나 기쁘고

용기 있게 이전의 노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 주어라. 얼마동안의 왕국의 외향적 관련사들에 대한 너희 역할이 완료되어야만 한다면, 너희는 하느님의 아들관계를 체험한 새로운 깨우침으로, 하느님을-아는 자에게는 그 어떤 노동과 노역도 평범하고 세속적인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고양된 실현으로, 전에 하던 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일하였던 너희에게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되었으며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봉사가 되었다. 그리고 전에 너희와 함께 사도였던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소식을 듣거든, 하느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봉사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함께 기쁨을 향유하면서 너희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하여라. 너희는 내 사도들이었고, 앞으로도 항상 그러할 것이며, 오는 왕국에서 너희를 내가 알아볼 것이다.”

181:2.20 (1960.1) 그리고 나서 예수는 빌립에게로 가셨으며, 그는 선 채로 다음과 같은 주(主)의 말씀을 들었다: “빌립아, 너는 내게 어리석은 질문들을 많이 하였지만, 나는 그 때마다 최선을 다하여 대답하였으며, 이제 아주 정직하기는 하지만 비(非)영적인 네 마음속에 일어난

그러한 질문들 중에서 최종적인 것에 대하여 대답을 해주려고 한다. 내가 네 주변에 있는 동안에도 너는 스스로에게 '만일 주(主)가 떠나시고 우리를 홀로 이 세상에 남겨두시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고 항상 질문하곤 하였다. 오, 신앙이 적은 자여! 너도 이미 다른 형제들에게 부족되지 않을 만큼 갖추어졌다. 빌립아, 너는 참 훌륭한 사무장이었다. 네가 우리를 실망시킨 것은 몇 번밖에 되지 않으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현시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너의 공식적인 사무장 신분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너는 곧 소명 받은 그 일—왕국 복음 전파—에 더욱 전적으로 매달려야 할 것이다. 빌립아, 너는 항상 무언가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였는데, 네가 곧 엄청난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이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훨씬 더 잘 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네가 물질적인 안목에 있어서도 진실하였기 때문에,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말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네가 영적 통찰력의 축복을 받게 되면, 네 일에 매진하여,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고 물질적인 마음의 눈이 아니라 영적 신앙의 눈으로 영원한 실체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목적에 네 일생을 바치기

바란다. 빌립아, 이 세상에는 네가 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이 일생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네 사명이 막중함을 잊지 말아라. 네가 큰일들을 감당해야하며, 그것이 신앙으로 완결되어진 후에는, 네가 나의 왕국에 들어오게 될 것이며, 눈으로 볼 수 없었고 귀로 들을 수 없었으며 필사자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네게 보여주면서 나는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 동안에, 너는 영의 왕국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되어, 내가 영적 왕국에서 너를 앞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선생의 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다오. 이렇게 하여, 내가 세상의 필사자로서 너와 함께 있을 때에 이룰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너를 위하여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빌립아,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181:2.21 (1960.2) 그러고 나서 주(主)는 나다니엘에게로 가셨다. 나다니엘이 일어나자 예수는 그에게 앉으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의 옆에 앉으시고 말했다; “나다니엘아, 너는 내 사도가 된 후로 증가되는 관용을 실천하고 그리고 편견을 초월하여 사는 것을 배워왔다. 그러나 네가 배워야할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다. 너의 변함없는 성실성으로 인하여 네

친구들이 항상 훈계를 받았다는 면에서 너는 네 친구들에게 축복이었다. 내가 떠난 후에는, 너의 솔직함이 오래되거나 새로운 너의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에 방해가 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이라도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듣는 사람의 지적인 지위와 영적 발달에 맞도록 변조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너는 배워야만 한다. 성실성은 사려 깊은 분별력과 합쳐질 때 왕국의 일에 있어서, 최상으로 봉사할 수 있다.

181:2.22 (1961.1) “만일 네가 형제들과 함께 일하기를 배우게 된다면, 너는 더욱 영구적인 일들을 성취하겠지만, 그러나 네가 만일 네가 행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다가 문득 벗어나고 있는 네 자신을 발견한다면, 설사 세상에 혼자 있게 되고 네 동료 신자들로부터 온통 고립되었을 때라도, 하느님을-아는 제자는 그러한 경우에도 왕국을 세우는 건축자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에 네 일생을 바쳐라. 나는 네가 끝까지 신실할 것임을 알며, 언젠가는 내가 너를 저 높은 곳에 있는 내 왕국의 확대된 봉사로 반가이 맞이할 것이다.”

181:2.23 (1961.2) 그러자 나다니엘이 예수께 이렇게 질문하였다:

“저는 당신께서 이 왕국의 봉사에 저를 처음 불러주신 때부터 당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왔지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희에게 말씀한 모든 의미를 충분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을 예상할 수 없으며, 다른 형제들 대부분도 마찬가지로 당황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혼돈을 고백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는 나다니엘의 어깨 위에 손을 얹으시면서 말했다; “나의 친구여, 네가 영적인 내 가르침들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할 때 당황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이유는 네가 유대 전통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너무 방해를 받기 때문이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맞추어서 내 복음을 해석하려는 너의 고집스러운 태도 때문에 너무 혼동되었기 때문이다.

181:2.24 (1961.3) “내가 입의 말로서 네게 많은 것을 가르쳤으며,

너희들 속에서 내 일생을 살았다. 너희 마음을 깨우치고 너희 혼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였으며, 나의 가르침들과 나의 일생을 통해서도 너희가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은 모든 선생들의 주(主)—실재

체험—의 손에 의하여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야 한다.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이 모든 새로운 체험들 속에서, 내가 너희 앞에 갈 것이며 진리의 영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은 너희가 이해하는 데 실패한 것을, 새로운 선생, 그가 왔을 때, 이 땅에서의 너희의 남은 일생을 통하여 두루 그리고 영원한 시대들 안에서 너희의 훈련을 통하여 남은 모든 것을 네게 드러낼 것이다.”

181:2.25 (1961.4) 그리고 나서 주(主)는 그들 모두를 보시며 말했다; “복음의 충만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당황하지 마라. 너희는 오직 유한한, 필사 사람이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무한하고 신성하며 영원한 것이다. 파라다이스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되는 체험을 점차적으로 계속 달성해 가는 영원한 시대가 너희 앞에 있으니 끝까지 대담하고 인내하라.”

181:2.26 (1962.1) 그리고 나서 예수는 도마에게로 가셨으며, 그는 일어서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도마야, 너는 종종 신앙이 부족하였었으나; 어찌되었든지, 네가 의심에 사로잡히는 동안에도 용기를 잃지 않았다.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선생들이 너를 속이지 못하게 될 것을 내가 잘 안다. 내가 떠난 후에는, 네 형제들이 새로운 가르침들에 대한 너의 비판적인 방법을 더욱 높이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 모두가 땅 끝까지 흠어지게 될 때, 너는 여전히 나의 대사임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서로 사랑하고 삶 속에서 영의 열매들을 맺으며 영으로 태어난 남자와 여자들의 체험 속에서 살아있는 진리가 작용하는 현시활동의 실증에 직면하였을 때, 지적인 의심의 타성을 사람의 비판적인 물질적 마음이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일에 네 일생을 바쳐라. 도마야, 네가 우리와 합세한 것을 내가 기뻐하며, 잠시 동안 당황한 후에 네가 왕국의 봉사를 계속하게 될 것을 안다. 너의 의심이 네 형제들을 난처하게 하였지만, 그 것들이 나를 괴롭히지는 않았다. 나는 너를 자신하며,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네 앞에 갈 것이다.”

181:2.27 (1962.2) 그 후에 주(主)는 시몬 베드로에게 가셨으며, 그는 예수가 말하는 동안 일어서 있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 왕국 복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일에 네 일생을 바치게 되리라는 것을 내가 알지만, 네가 여러 해 동안 나와 그토록

가까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들이 네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나를 슬프게 한다. 네가 무슨 체험을 해야만 네 입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게 되겠느냐? 너의 생각 없는 말과, 너의 주제넘은 자아-확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느냐! 그리고 만일 이 약점을 고치지 못한다면 네가 틀림없이 훨씬 더 많은 고난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허물에도 불구하고 네 형제들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으며, 이 단점이 어떤 방법으로도 너에 대한 나의 애정을 경감시키지 않는다는 것도 네가 알아야 하지만, 그것이 너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끊임없이 네게 고난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바로 오늘밤을 지내는 체험으로부터 반드시 큰 도움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시몬 베드로, 너에게 말하는 것을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네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말한다: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는 큰 위험에 처할 것이다. '목자가 죽임을 당하고 양들이 멀리 흩어질 것이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없을 때, 너희들 중의 일부는 내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의심에 사로잡히고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와 약속하겠는데 내가

반드시 잠시 동안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며, 그 후에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181:2.28 (1962.3)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 손을 예수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다; “당신으로 인하여 내 형제들이 모두
의심에 사로잡힐지라도, 저만은 당신이 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저는
당신을 따라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당신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181:2.29 (1962.4) 격앙된 감정으로 떨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베드로는 주(主)의 앞에 서
있었으며, 예수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말했다; “베드로야,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겠는데, 오늘 밤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서너 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는 나와의 평화로운
관계로부터 배우지 못하였던 것을 심한 고난과 깊은
비애를 통하여 배우게 될 것이다. 너에게 꼭 필요한 이
교훈을 실제로 배우고 난 후에는, 비록 네가 감옥에 갇히게
될지라도, 그리고 혹시, 아버지의 왕국을 건설하면서
사랑의 봉사에 대한 숭고한 값을 지불하는 일에 나를

따르게 될지라도, 네 형제들을 튼튼하게 해야 할 것이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바쳐진 네 일생을 계속하여 살아야 할 것이다.

181:2.30 (1962.5) “그러나 내 약속을 잊지 말아라: 내가 부활한 후에는,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무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곧 겪어야만 할 일들에 대해서 너희 각자를 대담하게 해달라고, 내가 오늘밤에도 아버지께 간청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희 모두를 사랑하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서로 사랑하라.”

181:2.31 (1962.6) 그리고 나서, 그들의 찬송이 끝난 후에, 그들은 올리브 산에 있는 야영지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제 182 편 겿세마네 동산에서

182:0.1 (1963.1) 예수가 열 한 사도와 함께 엘리야와 마리아 마가의 집에서 겿세마네 야영지로 돌아온 것은 목요일 밤 열시 경이었다. 동산에 있었던 날 이후로, 요한 마가는 예수를 주시하는 일에 전적으로 매달렸다. 잠을 자지 못한 요한 마가는 주(主)가 사도들과 함께 다락방에 계시는 동안 몇 시간 동안 쉴 틈을 얻었지만, 그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 재빨리 외투를 걸친 후에, 그들을 따라서 그 도시를 벗어나, 기드온 시내를 넘고, 겿세마네 공원 근처에 사적으로 설치한 야영지로 들어갔다. 그리고 요한 마가는 이 날 밤과 다음 날 내내 주(主)의 곁에 아주 가까이 있었으므로 모든 일을 목격하였으며 이때부터 십자가 형벌이 있던 시간까지 주(主)가 말씀한 것을 거의 다 듣게 되었다.

182:0.2 (1963.2) 예수와 열 한 사도들이 야영지로 돌아오면서, 사도들은 유다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의미에 대하여 의아하게 여기기 시작하였으며, 그들 중의 하나가 그를 배반할 것이라는 주(主)의 암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였으며, 그들은 처음으로 가롯 유다와 모든 것이 잘되지 않았다고 의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야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공개적인 언급을 회피하였으며, 먼저 와서 자기들을 받아들이려고 기다리고 있으리라 생각한 유다가 그곳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모두 안드레에게 물려가 유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었을 때, 그들의 우두머리는 “유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우리를 버린 것을 염려 한다”고 말할 뿐이었다.

제 1 장. 마지막 단체 기도

182:1.1 (1963.3) 야영지에 도착한 다음 잠시 후에, 예수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의 친구들과 형제들아, 너희와 함께 할 시간이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으며, 이러한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 시간에 우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끼리 따로 떨어져 있기를 나는 원한다.”

182:1.2 (1963.4) 그렇게 말스민 예수는 조금 떨어진 올리브 산으로 길을 인도하였으며, 예루살렘 전체가 보이는 곳에서 그들이 사도임명 받던 날에 했던 것처럼 자신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원을 그리면서 크고 평평한 바위 위에 무릎을 꿇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 한 가운데에 부드러운 달빛 속에서 장엄한 모습으로 서신 채로, 그는 하늘을 향해 그의 눈을 들고 기도 하였다.

182:1.3 (1963.5) “아버지여, 나의 시간이 닳아 왔습니다; 지금 당신 아들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당신을 영광되게 할 수 있도록. 내 영역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체에 대한 충분한 권한을 당신이 내게 주신 것을 나는 알고 있으며, 그리고 나는 신앙으로 하느님의 아들이 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창조체들이 당신을 유일한 참된 하느님이요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과, 그들이 당신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를 믿어야만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버지, 나는 이 땅에서 당신을 높여드렸으며 내게 맡기신 일을 성취하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지은 자녀들에게 나의 증여는 내가 거의 완결하였으며; 육신으로의 내 생명을 내려놓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 나의 아버지여,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당신과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나를 영광되게 하시고 당신의 오른 손 쪽에 한 번 더 나를 받아들여주십시오.

182:1.4 (1964.1) “나는 당신께서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당신을 현시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소유이고—모든 생명이 당신의 손에 있는 것처럼—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나는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았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육신으로 살았던 일생이 나의 아버지를 세상에 알려주기 위한 것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진리를 내가 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 친구들이요 대사들인 이

사람들은 당신의 말씀을 진지하게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당신으로부터 왔다는 것, 당신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과, 내가 이제 당신께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저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선택받은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려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육신으로 머무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당신을 대표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당신의 일로 돌아간 후에 이 세상에게 나를 대표하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선택한 자들로서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게 속합니다; 당신께서 저들을 내게 주시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속한 모든 것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며, 당신 것이었던 모든 것을 이제 당신이 내 것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서 높임을 받았으며, 나는 이제 내가 이 사람들 속에서 명예롭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으며; 당신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는 이들이 사람들 속에서 우리와 우리 왕국을 대표하도록 남겨두어야만 합니다. 아버지, 내가 육신으로 일생을 마칠 준비를 함으로 이 사람들의 신실함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내 친구들인 이
사람들도 영으로 하나가 되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내가 그들을 인도하고 돌볼 수
있었지만, 이제 나는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고 강건하게 할 새로운 선생을 우리가 보낼 수 있을
때까지 저들 곁에 있어주십시오.

182:1.5 (1964.2) “당신은 내게 열 두 사람을 주셨고, 하나를
제외하고 저들 모두를 지켰지만, 복수의 아들은 더 이상
우리들과 동료관계를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약하고 여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저들을 믿을 수
있음을 압니다; 나는 저들을 증명하였고; 그들은 당신을
존경하는 것만큼 그렇게, 저를 사랑하였습니다. 나 때문에
저들이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지만, 저들이
하늘왕국에서의 아들관계에 대한 확신의 기쁨으로 또한
가득 차도록 나는 원합니다. 나는 저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었으며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한
것처럼 저들도 미워하겠지만, 나는 당신께서 저들을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시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직 세상의
악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나도 이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려 합니다. 그들에게 가르친 진리와 그들에게 내가 계시한 사랑을 통하여 깨끗하게 되라고 내가 그들을 분발시켜야 하는 당신의 봉사애,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살았고 그리고 제 일생을 바쳤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내가 떠난 후에 이 형제들을 지켜달라고 당신께 요청할 필요가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께서도 저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들이 하는 것같이 것처럼 아버지께서 필사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저들이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82:1.6 (1964.3) “그리고 이제, 나의 아버지여, 이 열 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믿고 있거나 또는 저들의 장차 사명활동의 말을 통하여 이후에 왕국 복음을 믿게 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당신 안에 있으며, 믿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영들 둘 모두 그들 안에 내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한 것같이 그들도 서로 사랑한다면, 내가
당신으로부터 온 것을 모든 사람들이 믿을 것이며 내가
이룬 영광과 진리에 대한 계시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당신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이 신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당신께서 영으로 나와 함께 사신 것처럼,
나도 육신으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당신께서 나와
하나가 되셨듯이, 나는 그들과 하나가 되었으며, 새로운
선생도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 안에서 영원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아들이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그러하시다는 것과,
당신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육신의 내 형제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이 신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와 함께 일해 주셔서,
그들이 곧 영광중에 나와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시고 그
후에는 파라다이스에 받아들여서 당신과 함께 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겸손으로 봉사하는
저들을 나와 함께 영광중에 거하게 해주시어서,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시간에서 뿌려놓은 씨앗의 영원한
수확으로서, 당신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그들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세상을 세우기 전에 당신과 함께

가졌던 영광을 이 땅의 형제들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은 의로운 아버지이신 당신을 거의 알지 못하지만, 나는 당신을 알고, 이 신자들에게도 당신을 알게 하였으며,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바로 그대로—세상에서 그들과도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182:1.7 (1965.1) 열 한 사도들은 몇 분 동안 예수 곁에서 둥그렇게 모여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으며, 일어난 후에는 가까이에 있는 야영지로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182:1.8 (1965.2) 예수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의 합일성을 위하여 기도하였지만, 획일성을 바라신 것은 아니었다. 죄는 악한 타성에서의 죽은 듯 마비된 차원을 창조하지만, 정의(正義)는 영원한 진리의 살아있는 실체들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신성한 영이 진보적인 교제 안에서 개별적으로 체험하는 창조 영을 키운다. 믿는-아들과 신성한 아버지의 영적 동료관계 속에는 교리적 최종이나 집단의식의 분파적 우월성이 결코 있을 수 없다.

182:1.9 (1965.3) 사도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중에, 주(主)는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이미 현시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로 육신으로 완전한 일생을 통하여 하느님을 계시함으로써 이루신 것이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내고자 하였지만, "나는 이시다."라는 말씀에서 더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더 계시해 달라는 간청을 받았을 때, 밝히신 말씀은 오직 "나는 스스로 그러한 자이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서의 일생을 완결하였을 때, 이러한 아버지의 이름은 매우 확실히 계시되었으므로 아버지의 육신화인 주(主)는 진실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수 있었다:

182:1.10 (1965.4) 나는 생명의 빵이다.

182:1.11 (1965.5) 나는 생명수다.

182:1.12 (1965.6) 나는 세상의 빛이다.

182:1.13 (1965.7) 나는 모든 세대들의 소망이다.

182:1.14 (1965.8) 나는 영원한 구원을 향한 열린 문이다.

182:1.15 (1965.9) 나는 끝없는 생명의 실체이다.

182:1.16 (1965.10) 나는 선한 목자이다.

182:1.17 (1965.11) 나는 무한한 완성을 향한 좁은 길이다.

182:1.18 (1965.12)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82:1.19 (1965.13) 나는 영원한 생존에 이르는 비결이다.

182:1.20 (1965.14)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82:1.21 (1965.15) 나는 나의 유한한 자녀들에게 무한한 아버지이다.

182:1.22 (1965.16)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너희는 가지들이다.

182:1.23 (1965.17) 나는 살아있는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다.

182:1.24 (1965.18) 나는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연결된 살아있는 다리이다.

182:1.25 (1965.19) 나는 시간과 영원 사이의 살아있는 연결 고리이다.

182:1.26 (1965.20) 이렇게 하여 예수는 하느님의 이름에 대한 살아있는 계시를 모든 세대들에게 확대시키셨다. 신성한

사랑이 하느님의 본성을 계시하듯이, 영원한 진리가 끊임없이 확대하는 비례로 그의 이름을 드러낸다.

제 2 장. 배반이 있기 전의 마지막 시간

182:2.1 (1966.1) 야영지에 돌아와서 유다가 없는 것을 발견한 사도들은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열 한 사도들이 반역한 동료 사도에 대하여 열띤 토의를 하는 동안, 다윗 세베대와 요한 마가는 예수를 한 쪽으로 모시고 가서 자기들이 여러 날 동안 유다를 유심히 관찰한 사실과 그가 주(主)를 적의 손에 넘겨주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다. 예수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친구들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뜻한 바가 아니면 사람의 아들에게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 가슴이 근심하도록 버려두지말라;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일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뿐이었다.

182:2.2 (1966.2) 활기찬 예수의 태도는 사라지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는 점점 더 심각해지셨으며, 슬픔에 차기까지 하였다. 크게 동요하는 사도들은 주(主)가 직접 각자의 막사로 돌아가라고 요청하였을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윗과 요한 마가와와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시면서 열 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였다: “나의 친구들아, 가서 쉬어라. 내일 일을 위해 각오를 단단히 하거라. 우리 모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후에 그들에게 숙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려하자,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부르셔서 말했다; “너희는 잠시 동안 나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

182:2.3 (1966.3) 사도들은 그들이 글자 그대로 기진맥진되어 잠에 떨어졌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로 그들은 잠이 부족하였다. 그들이 각자 흩어져 있는 그들의 숙소로 가기 전에, 시몬 젤로떼는 그들을 자기 막사로 데리고 갔으며, 그곳에 숨겨둔 칼들과 다른 무기들을 각자에게 나누어주었다. 나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무기를 받아들여서 몸에 지녔다. 나다니엘은 무장하기를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주(主)께서 자기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자기 제자들은 그것을 이룩하기 위하여 칼로 싸워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하였다. 나는 그 말씀을 믿으며; 주(主)는 자신의 보호를 위하여 우리에게 칼을 사용하도록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그의 막강한 힘을 보았으며, 원한다면 자신을 적으로부터 직접 보호하실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만약에 그가 적과 싸우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내가 기도는 하겠지만, 칼을 휘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안드레가 나다니엘의 말을 듣고, 자기 칼을 시몬 젤로떼에게 돌려주었다. 그리하여 아홉 명만이 무장한 채로 각자 잠자리로 흩어졌다.

182:2.4 (1966.4) 유다가 배반자인 것에 대한 분노는 사도들의 마음속에 잠시 동안 다른 모든 것을 가렸다. 최후의 만찬 도중에 말씀한, 유다에 대한 주(主)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자기들을 저버렸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다.

182:2.5 (1966.5) 여덟 명의 사도들이 마침내 각자의 막사로 돌아간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주(主)의 명령을 받아들이려고 서 있는 동안, 예수는 다윗 세베대에게 “너의 메신저들 중에서 가장 빠르고 믿을만한 사람을 내게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다윗이 한 때 예루살렘과 벳세다를 오가며 야간 메신저 봉사를 하였던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데려오자, 예수는 그에게 지시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브너에게 단숨에 달려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主)께서 당신에게 평안의 인사를 전하시고 말씀 하십니다. 그를 죽일 적들의 손에 넘겨질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나 그는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며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잠시 나타나실 것이며, 그리고 새로운 선생이 당신의 가슴속에 내주하기 위하여 오는 때로 그가 당신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주(主)가 만족하실 만큼 야곱이 메시지를 반복할 수 있게 되자, 예수는 그를 보내시면서 말했다; “야곱아, 누가 네게 무슨 말을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밤 동안 보이지 아니하는 메신저가 네 옆에서 같이 달려갈 것이다.”

182:2.6 (1967.1) 그리고 나서 예수는 그들과 같이 야영을 하고 있는 그리스인 방문자들의 우두머리를 향하고 말했다; “나의 형제여, 내가 이미 너희에게 경고하였으니 곧 일어나게 될 일로 인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사람의 아들은 자기의 적들, 우두머리 사제들과 유대인 통치자들의 선동 때문에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지만, 나는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 형제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어라.”

182:2.7 (1967.2)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사도들이 주(主)께 안녕히 주무시라는 개인적 인사를 드렸지만, 이 날 저녁에 그들은 유다의 이탈이 갑자기 실현된 것에 너무 몰두했고 주(主)의 고별 기도에서의 비범한 본성에 너무 압도되어서, 그들은 그의 작별 인사를 듣고 아무 말 없이 가버렸다.

182:2.8 (1967.3) 예수는 그 날 밤 자기 곁을 떠나는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안드레야, 내가 이 잔을 마신 후에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네 형제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너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으니, 형제들에게 용기를 심어 주어라. 네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

182:2.9 (1967.4) 밤이 이미 깊었으므로 그 밤에 특별한 일이 생기리라고 생각하는 사도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최악의 일에 대비해야 했기에 잠을 청하였다. 유월절 준비일의 정오 이후에는 어떤 세상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두머리 사제들이 주(主)를 체포하려고 아침 일찍 찾아 나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예수의 적들이 유다와 함께 그 한밤중에 오리라는 것을, 오직 다윗 세베대와 요한 마가만이 알고 있었다.

182:2.10 (1967.5) 다윗은 그 날 밤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잇는 길로 통하는 오솔길 위쪽에 파수병을 세워 두었으며, 그 동안 요한 마가는 기드온 옆에서 갯세마네로 올라오는 길을 감시하였다. 다윗은 자아-부과된 외곽 보초 과업을 위해 나가기 전에 예수께 작별 인사를 드리면서 말했다; “주(主)여, 당신과 함께 한 저의 봉사를 수행하면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제 형제들이 당신의 사도이지만, 저는 꼭 해야 할 작은 일들을 기쁘게 하였으며, 당신이 가시면 진심으로 당신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가 다윗에게 말했다; “다윗, 애야, 다른 사람들은 하라고 지도 받은 일들을 하였지만, 네가 했던 이 봉사는 자진해서 한 것이었고, 나는 너의 헌신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너도 역시 언젠가는 나와 함께 영원한 왕국에서 일할 것이다.”

182:2.11 (1967.6) 그러고 나서 다윗은 위쪽 오솔길로 감시하러 떠나면서 예수께 말했다; “저, 주(主)여, 제가 당신 가족에게 메신저를 보냈었는데, 오늘밤에 여리고에

있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밤에 올라오기에는
길이 험악하여 위험할 것이므로 내일 오전 일찍 이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다윗을 내려다보시며
오직 “다윗아,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였다.

182:2.12 (1967.7) 다윗이 올리브 산을 올라갔을 때, 요한 마가는
예루살렘 쪽으로 흐르는 개울 옆 길 가까이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요한은 이곳에 계속 남아있어야 했으나,
예수 가까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은 그의
커다란 욕망으로 그러지 못하였다. 다윗이 그를 떠난 후
얼마 안 되어서, 요한 마가는 예수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바로 옆에 있는 골짜기로 가시는 것을
보았으며, 그는 헌신과 호기심이 뒤섞이는 것을 가누지
못하여 파수자인 자기 자리를 떠나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유다와 무장한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으러 나타나기 전에
그 정원에서 마지막 순간 동안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보고
들었다.

182:2.13 (1968.1) 주(主)의 야영지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가룟 유다는 성전 경비 대장과 의논을 하고 있었으며,

그는 예수를 체포하는 일에 그 배반자의 지시를 따르도록 이미 부하들을 모아 출동할 준비를 갖추어 놓았었다.

제 3 장. 겟세마네에서 홀로 계심

182:3.1 (1968.2) 야영지 둘레에서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조용해진 후에, 예수는 전에 종종 올라가 기도하고 교통하던 근처 골짜기 조금 위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세 사도들이 그가 무척 침울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들은 주(主)가 그토록 무거움에-쌓이고 슬픔에 잠기신 것을 전에는 지켜본 적이 없었다. 그가 자신의 헌신기도의 장소에 도착하자, 주(主)는 세 사람에게 앉아서 자신과 함께 지켜보라고 명하였고, 한편 그는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으로 기도하러 가 버렸다. 그리고 그는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했다; “나의 아버지여, 저는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며, 그렇게 하였습니다. 나는 육신에서의 이 생명을 버릴 시간이 왔음을 알고 있으며, 그로부터 움츠러들지 않지만, 그러나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당신의 뜻임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나의 일생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것처럼 죽음에서도 당신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182:3.2 (1968.3) 주(主)는 기도하는 자세로 잠시 시간이 흐른 후에 세 사도들에게로 가셨으며, 그들의 눈이 무거워 깨어있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가 그들을 깨우며 말했다; “도대체!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지켜볼 수 없겠느냐? 내 혼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너무나도 슬픔에 차있고, 내가 너희의 동행자관계를 간청하고 있음을 너희가 볼 수 없다는 말이나?” 세 사람이 잠깐의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자, 주(主)는 홀로 떨어진 곳으로 갔고 땅에 엎드려 다시 기도했다; “아버지, 이 잔을 피하는 것이 가능함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모든 것이 당신께 가능 합니다—그러나,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왔으며, 이것이 쓴 잔이기는 해도,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마시고자 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어느 막강한 천사가 그의 옆으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야기하며 그에게 닿으며 그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다.

182:3.3 (1968.4) 예수가 세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금방 잠에 빠진 그들을 발견하였다. 그는 그들을 깨우면서 말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지켜보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그러한 시간에—더우기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도가 너희에게 필요한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를 떠나 있을때 잠에 빠지는 것이냐?”

182:3,4 (1968,5)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주(主)는 따로 가서 기도했다; “아버지여, 잠들어 있는 나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영은 참으로 하고자 하나, 육신은 연약합니다. 오, 나의 아버지여, 이 잔이 지나칠 수 없다면, 내가 그것을 마시겠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는 기도를 마친 후에 잠시 동안 땅 위에 엎드려 계셨다. 그가 일어나서 사도들에게 돌아왔을 때, 다시 한 번 잠들어 있는 그들을 보셨다. 그들을 살펴보시고 측은히 여기는 손짓으로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라; 결정의 순간이 지나갔다. 사람의 아들이 적에게 팔리는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들을 깨우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시고 말했다; “일어나라, 야영지로 돌아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며, 나의 양떼들이 흩어질 때가 이르렀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다.”

182:3.5 (1968.6) 예수가 자기 추종자들과 함께 지내신 지난 수년 동안, 정말로 그들은 그의 신성한 본성에 대한 많은 확증들을 가졌지만, 이 순간에 그들은 그의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보게 되었다. 그의 신성에 대한 가장 큰 계시인 그의 부활 바로 직전에, 그의 필사자 본성의 가장 큰 증거들인 그의 굴욕과 십자가 처형이 이제 피할 수 없게 오고 있었다.

182:3.6 (1969.1) 그 정원에서 기도하던 때 순간마다 그의 인간성은 그의 신성 위에 확고부동한 신앙을 확립하였다; 그의 인간 의지는 더욱 완벽하게 아버지의 신성한 의지와 하나가 되어 갔다. 막강한 천사가 그에게 들려준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아버지께서 모든 필사 창조체들이 시간의 실존에서 영원의 진보 과정에서 물질적 괴멸을 격어야만 하는 것같이 그의 아들도 죽음의 창조체적 체험을 통하여 그의 이 땅에서의 증여를 완결하기를 원한다는 전갈이 있었다.

182:3.7 (1969.2) 이른 저녁때까지만 해도 그 잔을 마시는 것이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지만, 인간 예수가 사도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그들을 쉬도록 그들을 보냈을 때, 시련은

점점 더 깊어졌다. 예수는 모든 인간 체험 속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감정의 밀물과 썰물을 체험하였으며, 이 때 그는 일에 지친 상태였는데, 오랫동안의 격렬한 수고와 사도들의 안전에 대한 극심한 염려로 인하여 기진맥진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육신화하신 하느님 아들의 생각과 느낌을 납득할 것 같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어떤 필사자도 없겠지만, 그의 얼굴에 크게 흘러내린 땀방울로 인하여, 우리는 그가 크게 고뇌하였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견디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마침내 아버지께서 그들의 방법대로 자연적인 사건들이 순리대로 일어나도록 허락하려 하였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한 우주의 최극 우두머리로서의 주권적 힘을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기로 충분히 결심하였다.

182:3.8 (1969.3) 광대한 창조체의 집합된 무리들이 예수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와 가브리엘의 과도기 합동 명령에 따라 이제 이 장면 위를 뒤덮게 되었다 이들 군대들의 부서별 지휘관들은 예수가 그들에게 개입할 것을 직접 명령하지 않는 한, 땅에서의 이 진행 과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경고를 받고 있었다.

사도들과 헤어지는 체험은 예수의 인간 가슴에 아주 큰 부담이 되었다; 이러한 사랑의 슬픔이 그를 압박하였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죽음에 잘 대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사도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지를 아셨으며, 그들을 떠나는 것이 걱정스러우셨다. 그는 자신이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잘 아셨지만, 그의 인간 가슴은 이러한 고난과 슬픔의 참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정당한 큰길이 있을 수 있는지를 발견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렇게 탈출구를 찾았으며 실패하자, 잔을 기꺼이 드시려고 하였다. 미가엘의 신성한 마음은 열 두 사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예수의 인간 가슴은 그들을 세상에 홀로 남겨두기 전에 무슨 일이든 더하고자 하였다. 예수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으며; 그는 진실로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였다. 그는 육친의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였다; 자신이 선택한 사도들 중 하나는 그를 배반하였다. 그의 아버지 요셉의 민족은 그를 거부하였으며 그리하여 이 땅에서 특별한 임무를 가진 민족으로서의 운명을 마감하였다. 그의 혼은 좌절된 사랑과 거부된 자비로 인하여 고뇌하였다. 모든 것들이

짓누르는 학대와 극심한 고통으로 압도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무서운 인간의 순간들 중에 하나이었다.

182:3.10 (1969.5) 예수의 인간성이 사적인 외로움, 대중 앞에서 겪는 치욕감, 그리고 그의 운동에서의 실패의 출현에 대한 이런 상황에 무감각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모든 정서들은 표현할 수 없는 무게로 그를 짓눌렀다. 이 큰 슬픔 속에서 그의 마음은 나사렛에서의 어린 시절로 그리고 갈릴리에서의 초기 사명활동으로 돌아갔다. 이 커다란 시련의 시간에 그의 마음속에는 초기 사명활동의 많은 즐거운 장면들이 마음에 떠올랐다. 그가 인간 가슴을 강하게 하고 곧 자기를 배반할 반역자와 마주칠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를 달래준 것은 나사렛, 가버나움, 헤르몬 산, 그리고 빛나는 갈릴리 바다 위에 태양이 뜨고 지는 장면에 대한 오래된 기억이었다.

182:3.11 (1969.6) 유다와 병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주(主)는 자신의 평상시 안정을 되찾았다; 영이 육신을 이기게 되었고; 의심을 두려워하거나 즐기는 모든 인간 경향에 대하여 신앙이 승리하였다. 인간 본성의 충분한 실현에 대한 최극의 시험이 치러졌고 만족스럽게 통과되었다. 사람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에 봉헌된 필사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충분한 확신
속에서, 그리고 침착하게 적을 대면할 수 있는 준비를 한
번 더하였던 것이다.

제 183 편 배반과 예수의 체포

183:0.1 (1971.1) 예수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마지막으로 깨우신 후에, 내일 일을 준비하기 위해 텐트로
돌아가 잠을 자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세 사도들은 이 때
흰히 잠이 깨었다; 잠깐 졸았던 덕분에 정신이 맑아졌고,
그 외에도, 흥분된 두 사람의 메신저들이 다윗 세베대에
관하여 묻고 베드로가 그의 감시 초소 위치를 알려주자
재빨리 그를 찾아 달려가는 광경이 벌어짐으로써 자극을
받아 잠이 깨었다.

183:0.2 (1971.2) 비록 여덟 명의 사도들이 깊이 잠들었지만,
그들과 함께 야영을 하고 있는 그리스인들은 재난을 더욱
심히 두려워하였으므로, 위험이 닥칠 경우에 깨울 수
있도록 파수자를 세워 두었었다. 두 메신저가 급히
야영지에 도착하였을 때, 그 그리스인 보초는 자기 고향
사람들을 모두 깨웠으며, 그들은 충분히 무장을 하고

각자의 막사에서 몰려 나왔다. 이제 여덟 명의 사도들을 제외하고 야영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다. 베드로는 자기 연관-동료들을 부르려 하였으나 예수가 강력하게 금지하였다. 주(主)는 그들 모두에게 각자 막사로 돌아가라고 부드럽게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그의 제안에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183:0.3 (1971.3) 주(主)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해산시키지 못하고, 그들을 떠나 겟세마네 공원 입구 근처에 있는 올리브유 즙 틀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셨다. 세 명의 사도들과 그리스인들 그리고 야영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즉시 그를 따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지만, 요한 마가는 급히 일어나 올리브나무들 속으로 돌아 내려가 올리브유 즙 틀 옆에 있는 작은 창고에 숨었다. 예수는 자신을 붙잡으러 오는 자들이 도착하였을 때 사도들을 소란하게 하지 않고 자신을 체포할 수 있도록 야영지와 자기 친구들로부터 떠났던 것이다. 주(主)는 사도들이 깨어 있다가, 자신이 잡힐 때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는 장면에서 심한 증오심이 발동되어 병사들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함께 체포되어나 않을까 하여

심히 염려하였다. 그들이 함께 붙잡히면 자신과 함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였던 것이다.

183:0.4 (1971.4) 예수는 자신의 죽이려는 계획이 유대인 통치자들 회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든 사악한 음모들이 루시퍼와 사탄 그리고 칼리가스티아로부터 총만한 승인을 받았다는 것도 아셨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 있는 이러한 반역자들이 자신과 함께 사도들도 모두 죽게 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셨다.

183:0.5 (1971.5) 예수는 올리브유 즙틀 위에 홀로 앉아 있었고, 거기에서 그 반역자가 오기를 기다리셨으며, 그리고 그의 모습은 오직 요한 마가와 수많은 천상의 관찰자들만이 지켜보았다.

제 1 장. 아버지의 뜻

183:1.1 (1971.6) 주(主)가 육신으로의 삶을 마치시는 것과 연관된 많은 사건들과 말들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성이 있다. 무지한 하인들과 냉담한 병사들에 의한 예수에 대한 잔인한 대접, 그의 재판에서의 부당한 수행, 그리고 종교 영도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무감각한 태도,

이러한 것들이 예수가 이들 모든 고통과 치욕을 참을성 있게 복종하였다는 사실과, 그가 그러면서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참되게 행하고 계셨던 것과 혼동해서는 결코 안 된다. 자신의 아들이, 탄생에서 죽음까지, 필사자 체험의 가득 찬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이 정말로 진실이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주(主)를 그토록 혹독하게 고문하고 그의 무저항의 개인에 그토록 끔찍하게 마구 계속 이어서 경멸하는 자칭 문명인이라는 존재들의 잔인한 행동을 조장시킬만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필사자 일생에서의 마지막 시간들 동안 예수가 겪으셔야 했던 비인간적이고 충격적인 이 체험들은 결코 아버지의 신성한 뜻의 일부분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그의 지친 사도들이 육체적 피로 속에 잠들어 있는 동안 그가 정원에서 드렸던 승리를 거둔 기도에 나타난 것처럼, 사람이 하느님께 최종적으로 복종하는 순간, 그의 인간 본성이 그렇게 하기로 그토록 위풍당당하게 맹세한 것이었다.

183:1.2 (1972.1)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모든 필사자들이 땅 위에서의 육신으로의 생애를 완결하는 것과 똑같이,

증여된 아들도 세상에서의 일생을 자연스럽게 완결하기를 원하였다. 평범한 남자와 여자들은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잇따라 일어나는 죽음의 에피소드를 특별한 섭리로서 쉽게 맞이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예수는 자연스러운 사건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방법으로 육신에서의 그의 생명을 버리기로 결정하였으며, 그의 믿을 수 없는 굴욕과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향하여 끔찍한 확실성으로 밀려들었던 비인간적 사건들의 사악한 음모의 잔인한 마수로부터 자신을 구해내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그리고 이 놀라운 증오의 현시활동과 전례 없는 잔인성 실증의 모든 것은 악한 사람들과 사악한 필사자들이 꾸민 것이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으며, 예수의 적들은 사탄들도 그것을 지시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생각이 없고 악한 필사자들이 증여된 아들을 그렇게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보증하였다. 죄의 아버지조차도 십자가형 장면의 끔찍한 공포로부터 얼굴을 돌렸다.

제 2 장. 성(城)안에서의 유다

183:2.1 (1972.2) 최후의 만찬을 먹고 있는 동안 갑자기 식탁을 떠난 유다는 그 후에 곧바로 자기 사촌의 집으로 갔으며,

그 둘은 바로 성전 경비 대장에게로 갔다. 유다는 그 대장에게 경비병들을 모을 것을 요청하고 예수께로 그들을 안내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아직도 사도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유다가 예상한 마가의 집을 향하여 출발하는 일이 조금 지체된 것은, 유다가 예정보다 조금 일찍 그곳에 도착하였기 때문이었다. 주(主)와 열 한 사도들은, 그 배반자와 경비병들이 도착하기 15분전에 이미 엘리야 마가의 집을 떠났다.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 도착할 무렵, 예수와 열 한 사도들은 성벽 밖에 있었으며 올리브 산 야영지로 가고 있었다.

183:2.2 (1972.3) 유다는 마가의 집에서, 단지 두 사람만이 저항을 위하여 무장하고 있었던, 그 열 한 명의 사도들 중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자 크게 당황하였다. 그는 우연히, 그들이 오후에 야영지를 떠났을 때, 오직 시몬 베드로와 시몬 젤로떼만이 칼을 차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유다는 도시가 조용하고 반항할 기회가 거의 없을 때 예수를 붙잡기를 바라고 있었다. 반역자는 만일 그들이 야영지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린다면, 60명이 넘는 헌신적인 제자들이 합세하게 될 것을 염려하였으며, 시몬 젤로떼가 자기

수중에 많은 무기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유다는 열 한 명의 충성된 사도들이 자기를 얼마나 증오하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점차 겁을 먹게 되었으며, 그들이 모두 자기를 죽이려고 하리라는 생각에 겁이 났다. 그는 불충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겁쟁이었다.

183:2.3 (1973.1) 다락방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자, 유다는 경비 대장에게 성전으로 돌아가자고 요청하였다. 이 때 통치자들은 그 배반자와의 흥정에 의하여 예수가 그 날 밤중까지는 체포되리라고 예상하면서, 예수를 넘겨받을 준비를 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집으로 모이기 시작하였다. 유다는 마가의 집에서는 이미 예수를 놓쳤다는 것과, 겿세마네에 가서 그를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연관-동료들에게 설명하였다. 그 때 그 배반자는, 60명이 넘는 헌신적인 추종자들이 그와 함께 야영하고 있으며, 그들이 모두 무장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하였다. 유대인 통치자들은 예수가 항상 무저항주의를 가르치지 않았느냐고 유다에게 말하였지만, 유다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 모두가 그의 그러한 가르침에 복종하는 것에 기댈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 두려웠으므로, 40명의 무장된 병사들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유대인 당국자들은 자기들 수하에 그만큼의 병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즉시 안토니아의 요새로 가서 병사들을 파견해 달라고 로마 지휘관에게 요청하였지만; 그들이 예수를 체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요청을 명백하게 거절하였으며 그들을 상급자에게 위임하였다. 이런 식으로 하여, 무장된 로마 병사들을 대동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기 위하여 결국 빌라도에게 갈 때까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가면서 한 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 그들이 빌라도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으며, 그는 이미 아내와 함께 사택으로 퇴근한 후였다. 그는 그 계획에 개입되기를 꺼렸으며, 무엇보다도 자기 아내가 그 요청을 허락하지 말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대인 산헤드린의 최고 감독이 와서 협조해 달라고 개인적 요청을 하였음으로. 총독은 나중에 그들이 떠넘기려고 떼어놓을지도 모를 그 어떤 그릇된 일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현명하겠다고 판단하였다.

183:2.4 (1973.2) 그렇게 하여, 가롯 유다가 성전을 출발한 것은 11시 반경이었으며, 60 명 이상—성전 경비병, 로마

군인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통치자들의 호기심 많은 하인들—이 그를 따라갔다.

제 3 장. 주(主)가 체포되심

183:3.1 (1973.3) 무장된 군인들과 경비병들 부대가 등과 횃불을 들고 공원으로 갈 때, 유다는 예수를 재빨리 정체성을 확인하여, 그의 연관-동료들이 방어하려고 모이기 전에, 체포하러 온 자들이 먼저 그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열보다 조금 앞에서 걸어갔다. 그리고 유다가 주(主)의 적들 앞에서 가기로 결정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가 병사들보다 그곳에 먼저 도착함으로서, 사도들과 예수 주변에 모인 다른 사람들이 그의 뒤를 바로 따라온 무장한 경비병과 그를 직접 연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유다는 마치 체포하려는 자들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려고 급히 오는 것처럼 보일 생각조차 하고 있었지만, 배반자의 의도를 무산시키는 예수의 인사 때문에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주(主)는 유다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였지만, 그는 배반자로서 그에게 인사하였던 것이다.

183:3.2 (1973.4)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같이 야영하던 약 30명가량의 사람들은, 횃불을 든 무장한 부대가 언덕의 언저리를 돌아 올라오는 것을 보는 순간, 예수를 체포하러 오고 있는 군인들인 것을 알고, 주(主)가 달빛 속에 쓸쓸히 앉아 계시는 올리브유 즙 틀 근처로 달려 내려갔다. 군인들 무리가 언덕 한쪽에 도착하였을 때, 세 명의 사도들과 연관-동료들도 언덕 반대쪽에 당도하였다. 유다가 주(主)께 말을 걸기 위하여 성큼성큼 걸어가는 동안, 주(主)를 사이에 두고 양편에 있는 무리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서 있었으며, 유다는 그의 이마에 반역의 입맞춤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83:3.3 (1974.1) 경비병들을 겿세마네로 안내한 후에는, 단순히 군인들에게 예수를 지목하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그에게 입을 맞추어 인사하겠다는 사전 약속을 실행하고 나서, 그곳을 신속히 빠져나가는 것이 그 배반자의 바램이었다. 유다는 사도들이 모두 나타나서, 그들이 사랑하는 선생님을 자기가 감히 배반하였다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모두 자기를 공격하게 될 것을 무척 염려하였다. 그러나 주(主)께서 유다를 배반자로서 맞이하자, 그는 너무 혼동이 되어서 피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예수는 유다가 그를 실재적으로 배반하는 것에서 그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하였다, 그 배반자가 자기에게 당도하기 전에, 그는 한 옆으로 걸어가서, 로마 군인들의 대장인, 왼쪽 첫 번째 군인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대장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즉시 그 장교 앞으로 가서서, 이 모든 창조의 하느님이 가지시는 평온한 장엄으로 그곳에 서신 채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였다. 무장한 이 군인들 대부분은 성전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었고, 나머지들도 그가 베푸신 기적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그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는 것을 듣자, 앞줄에 있던 자들이 갑자기 뒤로 물러났다. 그들은 그가 평온하고 장엄하게 정체성을 밝히는데 대해서 크게 놀랐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배반을 위한 자기 계획대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어졌다. 주(主)의 적들에게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으며, 그들은 유다의 도움 없이도 그를 체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배반자는 무장한 군대와 함께 나타난 자신의 현존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거기에다가 그는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자신의 약속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에게 푸짐하게 수여될 큰 상과 명예에 걸맞게 하기 위하여, 유대 통치자와의 배반 흥정에 대한 자기 역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장면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183:3.5 (1974.3) 예수의 모습과 특별한 그의 음성 때문에 처음에 뒤로 물러났던 경비병들이 다시 대열을 갖추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유다는 예수께로 가서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주(主)여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유다가 그렇게 하면서 주(主)를 포옹하자, 예수가 말하기를, “친구여, 이렇게 한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냐!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려고까지 하느냐?”

183:3.6 (1974.4)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대경실색하였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예수는 유다의 배반적인 포옹에서 벗어나 경비병과 군인들 쪽으로 걸어가 다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다. 대장은 다시 “나사렛 예수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다시 대답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돌아갈 수 있게 하라.
나는 너희와 같이 갈 준비가 되어있다.”

183:3.7 (1974.5) 예수는 경비병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준비가 되었으며, 그 군인들의 지도관은 세 명의 사도들과 연관-동료들이 평안히 돌아가도록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출발할 준비를 갖추기 전에, 예수가 그 지도관의 명령을 기다리며 서 계실 때, 대제사장 시리아인 호위병 말고가 예수 앞으로 나왔으며, 로마인 지도관이 예수를 그렇게 묶으라고 명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손을 뒤로 묶으려고 하였다. 주(主)가 이러한 모욕적인 대우를 받게 되려는 모습을 본 베드로와 그의 연관-동료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고를 죽이려고 달려 나갔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인들이 나서기 전에, 예수는 손을 들어 베드로를 말리시고, 엄하게 꾸짖으시며 말했다;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이라도, 이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고 싶어

하는, 열 두 군단이 넘는 천사와 그 연관-동료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183:3.8 (1975.1) 예수는 이렇게 하여,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 의한 물리적인 저항을 효과적으로 정지시키셨지만, 그것이 경비병의 대장에게는 두려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으며, 그는 곧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를 견고하게 붙잡고 신속하게 그를 묶었다. 두꺼운 줄로 그의 손을 묶자, 예수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배척하러 나왔느냐? 내가 매일같이 성전에서 너희와 같이 있었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183:3.9 (1975.2) 예수가 묶였을 때, 그 지휘관은 주(主)의 추종자들이 그를 구하려고 대들 것을 염려하여, 그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하였지만; 체포하라는 지휘관의 명령을 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급히 골짜기로 달아났기 때문에, 군인들이 속히 행동을 취하지 못하였다. 요한 마가는 근처에 외따로 서있는 창고 속에서 그 동안 내내 남아 있었다. 경비병들이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자, 요한 마가는 도망가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따라잡기 위하여 창고에서 몰래 빠져 나오려고 하였지만; 그가 일어나는 순간, 도망가는 제자들을 쫓아갔다가 돌아오는 군인들 중에서 마지막 사람이 옆을 지나가다가, 외투를 걸친 이 젊은이를 발견하고 쫓아왔으며, 거의 잡힐 뻔하였다. 그 군인은 요한 마가를 따라와서 그의 외투를 손으로 잡았지만, 그 젊은이는 외투를 벗어 던지고, 그 군인이 빈 외투를 들고 있는 동안, 벗은 채로 도망하였다. 요한 마가는 위쪽 오솔길에 있는 다윗 세베대를 향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려갔다. 그가 일어났던 일을 다윗에게 말한 후에, 그들은 서둘러서 사도들이 잠들어 있는 막사로 돌아갔으며 여덟 명의 사도들에게 예수가 배반당하고 체포된 사실을 알렸다.

183:3.10 (1975.3) 여덟 명의 사도들이 일어날 때쯤 되어서, 골짜기로 달아났던 사람들이 돌아왔으며, 그들은 모두 올리브유 즙 틀 근처에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의논하였다. 한편, 올리브나무 숲 에 숨어있던 시몬 베드로와 요한 세베대는 이미 군인들과 경비병들 그리고 하인들 무리를 뒤따라갔으며, 그들은 마치 지독한 죄인을 끌고 가는 것처럼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호송하였다. 요한은 무리들 뒤에서 가까이 따라갔지만,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서 따라갔다. 요한 마가는 군인의 손에서 벗어난 후에 시몬 베드로와 요한 세베대의 막사에서 찾은 한 외투를 입었다. 그는 경비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올리브나무 과수원 담을 따라 돌아가서 그 무리들 앞으로 갔으며, 대제사장의 저택 문 입구 가까이에 숨어 있었다.

제 4 장. 올리브유 즙 틀 근처에서의 의논

183:4.1 (1975.4) 야고보 세베대는 시몬 베드로와 자기 형 요한을 따라갈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주(主)가 체포된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논하기 위하여 올리브유 즙 틀에 모인, 같이 야영하던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합류하였다.

183:4.2 (1975.5) 안드레는 동료 사도들 전체의 활동을 관장하는 모든 의무로부터 벗어났으며; 따라서, 그들의 일생 중에 가장 큰 위기를 맞아, 그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잠깐 동안 비공식적인 토의가 있는 후에, 시몬 젤로떼가 올리브유 즙 틀의 돌담 위에 일어서서, 주(主)와 왕국의 당위성을 위해 충성하자고 감동적으로 열변을

토하였으며, 동료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속히 무리를 따라가서 예수를 구출하자고 간곡히 요청하였다. 시몬이 말을 마치자마자 나다니엘이 일어서서, 무저항에 대해 여러 번 반복한 예수의 가르침에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충고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공격적인 주동에 따라가려고 했을 것이다. 또한 그는 바로 그날 밤에 한, 자신들이 하늘왕국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파할 때를 위하여 생명을 유지해야한다는 예수의 지시를 상기시켰다. 그리고 나다니엘은 이러한 입장에 대한 야고보 세베대의 지지로 용기를 얻었는데, 야고보는 이 때,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칼을 빼들고 예수의 체포를 막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가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명령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마태와 빌립도 한 마디 하였지만, 도마가 말하기까지 어떤 결론도 내려지지 못하였는데, 그는 예수가 나사로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죽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주(主)가 친구들에게 주(主) 자신을 방어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의 인간 적들을 좌절시키는 그의 신성한 힘의 사용을 억제하기를 끈질기게 고집하였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도마는 다윗 세베대가 그 모임을 위해 소식을 전달하고 메신저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야영지에 남아 있을 것이므로, 각자 자신을 위하여 흩어져 있는 것이 낫겠다고 설득하였다. 같은 날 새벽 두 시 반 경 그 야영지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 오직 다윗만이 서너 명의 메신저들과 함께 남아 있었고, 다른 메신저들은 예수가 어디로 끌려 가셨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올 수 있도록 파견되었다.

183:4.3 (1976.1) 다섯 명의 사도들, 나다니엘, 마태, 빌립, 그리고 쌍둥이 형제들은 벳바게와 베다니로 가서 숨었다. 도마,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시몬 젤로떼는 그 성(城)안에 들어가 숨었다. 시몬 베드로와 요한 세베대는 안나스의 집으로 따라갔다.

183:4.4 (1976.2) 날이 새자마자, 시몬 베드로는 낙심하여 깊은 절망에 빠진 모습으로 겿세마네 야영지로 돌아갔다. 다윗은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니고데모의 집에 있는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날 수 있도록 한 메신저를 같이 보냈다.

183:4.5 (1976.3) 십자가형이 끝난 바로 그 순간까지 요한 세베대는
예수의 지도대로 항상 그의 가까이에 남아 있었으며,
시간마다 다윗의 메신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정원
야영지에 있는 다윗에게 보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숨어있는 사도들과 예수의 가족에게 전달되도록 한 것도
바로 요한이었다.

183:4.6 (1976.4) 분명히, 목자가 사로잡히고 양들은 흩어졌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예수가 미리 경고하였음을 그들
모두가 어렴풋이 깨닫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주(主)가
갑작스럽게 사라진 것에 너무 심하게 충격을 받았으므로
그들의 마음을 정상적으로 가질 수가 없었다

183:4.7 (1976.5) 날이 밝은 직후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형제를
만날 수 있도록 떠난 후에, 예수의 육친 형제인 유다가 오직
주(主)가 이미 체포되었는지를 알고자하여, 다른
가족들보다 먼저 숨을 헐떡이며 야영지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그는 여리고로 통하는 길로 급히 내려가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자매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다윗
세베대는 유다를 통해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메신저들을 통해 정기적으로 전하게 될 소식을 기다리라고 부탁하였다.

183:4.8 (1976.6) 이것이 목요일 밤 이후에서 금요일 이른 새벽 시간에 사도들과 주요 제자들 그리고 예수의 이 세상 가족들에 관하여 일어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그룹들과 각 사람들은 다윗 세베대가 겿세마네 야영지에 있는 그의 본부로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는 메신저 봉사에 의해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제 5 장. 대제사장의 저택으로 가는 길에서

183:5.1 (1977.1) 그들이 예수와 함께 그 정원으로부터 출발하기에 앞서서, 성전 경비병들의 유대인 지도관과 군인 부대의 로마인 지도관 사이에, 예수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났다. 성전 경비병들의 지도관은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고 가라고 명하였다. 로마 군인들의 지도관은, 이전에 대제사장이었으며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저택으로 예수를 호송하라고 지도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로마인들이 유대인 종교법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직접 안나스와 의논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로마 지도관의 명령에 따르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예수
의 예비 심문을 위하여 안나스의 집으로 그를 호송하였다.

183:5.2 (1977.2) 유다는 그 지휘관들 곁에서 걸어가면서, 모든
말들을 듣고자 하였지만; 유대인 지휘관과 로마인 장교 둘
모두 배반자가 듣지 못하도록 말하였으므로, 그들의
의논에 끼어들지 못하였다—그들은 그런 식으로 그를
멀시하였다.

183:5.3 (1977.3) 이 때 요한 세베대는, 항상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주(主)의 지시를 기억하면서, 예수 가까이로
갔으며 두 지휘관 사이에서 걸어갔다. 성전 경비병들의
지휘관은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보좌관에게 말했다;
“이 사람을 체포하여 묶어라. 그는 이 사람의 추종자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로마인 지휘관은
둘러보다가 요한을 발견하자, 그 사도를 자기 옆에서
따라오도록 하고 아무도 그를 괴롭히지 말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나서 로마인 지휘관은 유대인 지휘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반자도 아니고 겁쟁이도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을 그 정원에서 보았으며, 칼을 꺼내어
우리에게 대항하지도 않았다. 자기 주(主)를 따라올 만큼

용감하니,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댈 수 없다. 어떤 종류의 죄수든지 적어도 한 친구 이상이 법정에 같이 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로마의 법이므로, 죄수인 자기 주(主) 옆에 이 사람이 서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유다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여 행진하는 자들 맨 뒤로 쳐져서, 안나스의 저택에 이르기까지 혼자 걸어왔다.

183:5.4 (1977.4) 이러한 사실에서, 이 날 밤과 다음 날 예수가 쓰라린 체험을 하는 동안 내내, 요한 세베대가 어떻게 하여 그의 곁에 남아 있을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유대인 종교 법정의 소송사건에 대해 관찰자가 되도록, 로마인 조연자가 지명한 어떤 지위를 그가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은 요한에게 어떤 말이나 방해도 하지 못하였다. 안나스의 저택에서 예수를 성전 경비병의 지휘관에게 넘겨주면서, 그 로마인은 자기 보좌관에게 “이 죄수를 따라가서, 빌라도의 허락 없이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라. 그들이 그를 암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그의 친구인 이 갈릴리인이 그의 옆에서 모든 일의 진행을 지켜볼 수 있도록 감시하라.”고 명하였을 때, 요한에게 부여된 특권은 더욱 확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른 열 명의 사도들이 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었지만, 요한은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는 순간까지 그의 곁에 있을 수 있었다. 요한은 로마인의 보호 속에서 행동하였으며, 유대인들은 주(主)가 돌아가신 후까지도 감히 그를 방해하지 못하였다.

183:5.5 (1977.5) 안나스의 저택에 도착하기까지, 예수는 입을 열지 않았다. 체포되는 순간부터 안나스 앞에 나타나시기까지, 사람의 아들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제 184 편 산헤드린 법정 앞에서

184:0.1 (1978.1) 안나스의 대리인들은 로마 군인들의 지휘관에게 예수를 체포한 후에 안나스의 저택으로 그를 즉시 데려오라고 비밀리에 지시했었다.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그는 유대인의 우두머리 종교 권한자로서 자신의 위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예수를 자기 집에 몇 시간 동안 억류하고 있었던 또 다른 이유를 그가 갖고 있었으며, 그것은 산헤드린 법정이 합법적으로 소집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다. 성전에서 아침 희생물을 제공하기 전에 산헤드린 법정이 소집되는 것은 불법이었으며, 이 희생물이 바쳐지는 것은 새벽 세 시경이었다.

184:0.2 (1978.2) 안나스는 자기 사위인 가야바의 저택에서 산헤드린 법정¹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약 30명의 산헤드린 회원들은 예수²가 자기들 앞에 호송되어왔을 때 판결을 내릴 준비를 하기 위해 자정 무렵에 그 대제사장의 집에 이미 모여 있었다.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강력하고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만이 소집되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재판 법정 구성에 오직 23명만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184:0.3 (1978.3) 예수³는 체포되신 겻세마네 정원에서 멀지 않은, 올리브 산에 있는 안나스의 저택에서 세 시간 가량 보내셨다. 요한 세베대가 안나스의 저택 안에서 무사하고 자유로웠던 것은, 로마인 지휘관의 명령 때문만이 아니라, 그와 그의 형제 야고보가 그 집의 오래된 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으며,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그가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의 먼 친족이었으므로 그 저택에 여러 번 손님으로 초대받은 적이 있었다.

제 1 장. 안나스의 심문

184:1.1 (1978.4) 성전 세입을 챙겨서 부자가 되었고, 그의 사위는 활동하는 대제사장이고, 로마 당국자들과 관계를 갖고 있는 안나스는 전체 유대인 사회에서 정말로 가장 힘이 있는 개인이었다. 그는 상냥하면서도 은근하며 계획가요 음모자였다. 그는 예수에 대한 처분을 직접 지도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중요한 일을 무뚝뚝하고 공격적인 자기 사위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를 주저하였다. 안나스는 주(主)의 재판이 반드시 사두개인들의 손에 맡겨지는 것을 확실하게 하길 원하였다; 산헤드린 회원들 중에서 예수의 정당함을 지지하였던 사람들이 실천적으로 모두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중 일부가 동정심을 나타낼 수도 있음을 염려하였던 것이다.

184:1.2 (1978.5) 주(主)가 전에 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그를 맞아들이는 그의 냉담함과 유보적 태도를 보시고 즉시 떠나신 이후로, 안나스는 예수를 수년 동안 만나지 못하였었다. 안나스는 일찍부터 알고 있음을 이용하려고 생각하였으며, 자기주장을 포기하고 팔레스타인을 떠나가도록 예수를 설득하려고 하였다. 그는 선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으며 예수가 죽음을 감수하기보다는 그 고장을 떠나는 쪽으로

선택하실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건장하고 굳게 결심한 모습의 갈릴리 사람 앞에 선 안나스는 그러한 제안이 아무 소용없으리라는 것을 즉시 알아보았다. 예수는 안나스가 그를 기억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장엄하고 차분하였다.

184:1.3 (1979.1) 예수가 젊었을 때, 안나스가 그에게 큰 관심을 가졌었지만, 지금은 예수가 아주 최근에 환전상들과 다른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심으로 인하여 그의 수입이 위협을 받았다. 예수의 가르침보다도 이러한 행동이,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그에게 양심을 품게 하였던 것이다.

184:1.4 (1979.2) 안나스는 그의 넓은 접견실로 들어가서 큰 의자에 앉은 후에, 예수를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하였다.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주(主)를 찬찬히 살펴본 후에, "네가 우리 고장의 평화와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가르침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만 한다는 것을 너도 깨닫고 있다." 안나스가 미심쩍은 얼굴로 예수를 바라보자, 주(主)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안나스가 다시 말하였다. "선동자인 시몬 젤로떼

외에, 네 제자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는 다시 그를 쳐다보고 눈을 내리뜨시고, 대답하지 않았다.

184:1.5 (1979.3) 안나스는 자기 질문에 예수가 대답하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대단히 불안해졌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네게 친절하게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냐? 다가오는 네 재판의 논쟁들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느냐?” 이 말을 들은 예수가 말했다; “안나스여, 내 아버지로부터 허락되지 아니하면, 당신은 그 어떠한 힘도 내게 가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이 잘 알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죽이려는 것은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이상을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친구여, 당신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그런즉 당신이 어떻게 하느님의 빛을 거절할 수 있단 말이냐?”

184:1.6 (1979.4) 예수가 안나스에게 말쑥한 친절의 태도가 그를 당황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예수가 팔레스타인을 떠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해야만 할 것이라고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내린 상태였으므로; 용기를 내어 물었다:

“네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한 것을 당신이 잘 알고 있다. 내가 회당에서 가르쳤고 성전에서도 여러 번 가르쳤으며, 그곳에서 모든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내 말을 들었다. 내가 은밀하게 말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무엇을 가르쳤느냐고 묻느냐? 너는 왜,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어보지 않느냐? 보라, 내가 말한 것을 비록 당신 자신은 이 가르침들을 듣지 못하였어도 모든 예루살렘이 들었다.” 그러나 안나스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가까이 서 있던, 그 저택의 사무장이 손으로 예수의 얼굴을 때리면서 “네가 어찌 감히 대제사장님께 그런 말로 대답을 하느냐?”라고 말하였다. 안나스는 자기 사무장을 꾸짖지 아니하였고, 그러자 예수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친구여, 내가 악한 말을 하였다면, 무엇이 악한 것인지 증거를 대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진실을 말하였다면, 네가 무슨 이유로 나를 때릴 수 있느냐?”

184:1.7 (1979.5) 안나스는 자기 사무장이 예수를 때린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였지만, 그 일을 주목하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강했다. 그는 당황하여 다른 방으로 들어갔으며, 하인들과 성전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를 거의 한 시간 동안이나 홀로 내버려두었다.

184:1.8 (1979.6) 다시 돌아온 그는, 주(主) 옆으로 가서 말하기를 “네가 이스라엘의 해방자인 메시아라고 주장하느냐?” 예수는 대답했다; “안나스여, 당신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알았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임명한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다.” 그러자 안나스가 말했다; “내가 말한 것은 네가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이냐?” 예수는 안나스를 바라보시면서 오직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이 그렇게 말한 데로이다.”

184:1.9 (1980.1) 이 때, 언제쯤 예수를 산헤드린 법정 앞으로 끌고 올 것인지를 물어보기 위하여 가야바의 저택에서 메신저들이 도착하였다; 거의 날이 샐 무렵이었기 때문에,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하고 성전 경비병들로 호위하게 하여 가야바에게 보내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도 잠시 후에 그들을 따라갔다.

제 2 장. 안마당에 있던 베드로

184:2.1 (1980.2) 일단(一團)의 경비병들과 군인들이 안나스의 저택 입구로 다가갈 때, 요한 세베대는 로마 군인들의 지휘관 옆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유다는 조금 거리를 두고 뒤에 떨어져 있었으며, 시몬 베드로는 멀리서 따라갔다. 요한이 예수와 경비병들과 함께 저택의 안마당으로 들어간 후에, 유다도 문으로 다가왔지만, 예수와 요한을 보자 가야바의 집으로 먼저 갔으며, 그곳에서 주(主)에 대한 실제 재판이 나중에 벌어질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유다가 떠난 직후,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문 앞에 섰고, 그들이 예수를 저택 안으로 호송해 들어가려고 할 때 요한이 그를 보았다. 문을 지키는 여종을 요한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베드로를 들여보내 달라고 요청하자, 기꺼이 들어주었다.

184:2.2 (1980.3) 안마당에 들어선 베드로는 밤공기가 차가웠으므로 숯불 곁으로 가서 몸을 녹이고자 하였다. 그는 예수의 적들 가운데에 있는 이곳이 무척 어색하게 느꼈으며, 정말로 그는 어색했다. 주(主)는 요한에게 부탁한 것과는 달리 그에게는 가까이 있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주(主)에 대한 재판과 십자가형이 벌어지는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특별한 지시를 받은 다른 사도들 중에 베드로도 포함되었었다.

184:2.3 (1980.4) 베드로는 그 저택 문으로 다가오기 직전에 자기 칼을 버렸기 때문에,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안나스의 뜰에 들어왔다. 그의 마음은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예수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실제 상황—자신이 안나스의 안마당에 와있고, 대제사장의 하인들 옆에서 불을 쬐고 있다는—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는 다른 사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다가, 요한이 어떻게 하여 그 저택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는지에 대해 생각이 미치자, 문지기에게 그를 허락하도록 그가 말하였음으로 하인들이 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184:2.4 (1980.5)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를 들여보낸 직후, 그리고 그가 불 옆에서 몸을 녹이고 있는 동안,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서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 하나입니까?”라고 장난기 어린 태도로 물었는데, 그 여자에게 저택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요한이었기 때문에, 이 때 이렇게 자기를 알아본 것에 대해 베드로가 놀랄 필요는

전혀 없었다; 그는 너무도 긴장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정체화구현이 그의 평정을 깨어 버렸다, 그리고 오직 마음에 먼저 떠오르는 생각—살아서 도망가야겠다는—으로 그 여종에게 즉석에서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184:2.5 (1980.6) 곧 다른 하인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다: “그들이 이 사람을 체포할 때 내가 너를 본 것 같은데? 너도 그를 추종하는 자들 중의 하나가 아니냐?” 이제는 베드로가 아주 깜짝 놀랐으며; 이 고발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알고서; 예수와의 모든 관계를 단호하게 부정하여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을 전혀 모르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도 아니다.”

184:2.6 (1980.7) 이 때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말했다: “당신이 예수라 하는 이 사람의 제자인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은, 그를 따르는 자들 중의 하나가 당신을 안마당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나의 자매가 당신이 이 사람과 함께 성전에 있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을 당신이 부인하십니까?” 그 여종의 비난하는 말을 들은 베드로는

심한 저주와 맹세로 예수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부인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추종자가 아니며; 그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

184:2.7 (1981.1) 베드로는 숯불 곁을 떠나 잠시 동안 안마당을 거닐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 냉정을 되찾으면서, 숯불 곁으로 돌아왔을 때, 옆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말했다; “당신도 분명히 이 사람의 제자이다. 예수라 하는 저 사람은 갈릴리인인데, 당신의 말하는 투를 보니, 역시 갈릴리 인처럼 말하고 있다.” 그리자 베드로는 다시 주(主)와의 모든 관계성을 부인하였다.

184:2.8 (1981.2) 베드로는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그 불 곁에서 떠나 혼자 입구로 가 있음으로써, 그의 고발자들과 접촉을 피하고 자 하였다. 한 시간 이상 혼자 있는 후에, 문을 지키는 여종과 그녀의 자매가 우연히 그를 만나게 되었으며, 예수를 따르는 자임이 분명하다고 다시 짓궂게 비난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비난을 다시 부인하였다. 그가 예수와 어떤 관계도 없다고 부인할 때, 수탉이 울었으며,

베드로는 그 날 밤 일찍 주(主)가 자기에게 한 경고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가 죄의식으로 무너져 내린 무거운 가슴으로 그곳에 서 있을 때, 저택의 문이 열리고 경비병들이 예수를 호송하여 가야바의 집으로 향하였다. 베드로의 옆을 지나가시던 주(主)는, 햇불의 빛에, 전에 자아-확신차고 겉으로 용감하였던 사도의 얼굴에서 절망스런 표정을 보셨으며,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살아있는 동안 그 모습을 잊지 못하였다. 주(主)의 얼굴에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필사 사람으로서의 사랑과 연민의 정이 뒤섞여 있었다.

184:2.9 (1981.3) 예수와 경비병들이 저택의 문을 나선 후에,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갔으나, 단지 짧은 거리 뿐 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그는 길옆에 앉아서 통곡하며 울었다. 그는 고뇌의 눈물을 흘린 후에, 자기 형인 안드레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야영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야영지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는 다윗 세베대 밖에 없었으며, 그는 예루살렘에 숨어있는 그의 형에게로 베드로를 안내할 수 있도록 메신저 한 명을 같이 보냈다.

184:2.10 (1981.4) 베드로의 전체 체험은 올리브 산에 있는
안나스의 저택 안마당에서 발생했다. 그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저택으로 가시는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다.
수탉이 울 때까지 자신이 주(主)를 여러 번 부인한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
밖에서 일어났음을 뜻하는데, 성(城)안에서 가축을 기르는
것은 법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184:2.11 (1981.5) 수탉의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맑은 감각으로
돌려놓기까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현관 앞을
오르락내리락 걸으면서 그는 오직 어떻게 그 하인들의
고발을 교묘하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것과, 자신을 예수와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어떻게
좌절시킬까하는 것만 생각했었다. 그는 한동안 이
하인들이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할 만한 도의적 혹은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생각에 골몰하였으며, 정체성이
확인된 존재가 되는 것을 피했고 체포되고 감금될
가능성에서 벗어났었다고, 그가 생각한 방법에 실제로
스스로를 기뻐하고 있었다. 수탉이 울 때까지는 자기가
주(主)를 부인했었다는 것이 베드로에게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예수가 자기를 바라보셨을 때까지는, 그는 자신이

왕국 대사로서의 특권에 걸맞게 사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184:2.12 (1981.6) 타협과 가장 작은 저항의 절충적인 길로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오직 결정했던 행위에 대한 길을 계속 갈 뿐이었다. 그릇되게 시작된 것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는 일에는 위대하고 숭고한 성격이 요구된다. 사람 자신의 마음은 너무나도 흔히 한번 실수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을 정당화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184:2.13 (1982.1) 베드로는 부활한 주(主)를 만날 때까지,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충분히 믿지 못하였으며, 주를 만난 후에야 그가 주(主)를 부인한 이 비극적인 밤이 있기 전과 똑같이 받아들여졌음을 알았다.

제 3 장. 산헤드린 회원들의 법정 앞에서

184:3.1 (1982.2)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산헤드린 심리법정을 소집하고, 예수를 그 앞으로 끌고 와 정식 재판을 시작하도록 요청한 것은, 금요일 아침 세시 반경이었다. 산헤드린은 이전의 세 번의 회의에서, 대다수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로, 율법을 어김과 신성 모독죄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의 전통을 경멸한 것에 대한 비공식 고소에 따라 사형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의하였었다.

184:3.2 (1982.3) 이번 회의는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산헤드린 회의가 아니었으며, 통상적인 장소인 성전 안의 다듬어진, 돌로 지어진 방에서 모인 것이 아니었다. 약 30 명의 산헤드린 회원들이 대제사장의 저택에서 소집된 특별한 재판 법정이었다. 요한 세베대는 소위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 전체 기간 동안 예수와 함께 있었다.

184:3.3 (1982.4) 자신들의 지위를 교란시키고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가 이제 자기들 손아귀에 분명히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여, 우두머리 사제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일부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우쭐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원한에 사무친 쇠고랑을 그가 결코 살아서 나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결심하였다.

184:3.4 (1982.5) 보통은, 유대인들은 사람의 사형에 관한 죄를 심리할 때, 엄청난 조심을 가지고 진행했으며 그리고 증인 선택과 재판의 전반적 수행에서 공정성에서의 모든

안전장치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가야바는 편견이 없는 재판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검사였다.

184:3.5 (1982.6) 예수는 평상시의 복장과 두 손을 뒤로 묶이신 모습으로 이 법정 앞에 서셨다. 법정 전체가 그의 장엄한 모습에 술렁거렸고 얼마간 혼란스러워졌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는 재판에서 그토록 태연한 모습을 목격한 적이 없었으며 그러한 죄인을 본 적이 없었다.

184:3.6 (1982.7)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죄수에게 죄가 인정되기 전에 적어도 두 사람의 증인이 모든 내용에 대해 동의해야만 하였다. 유다는 증인이 될 수 없었는데, 유대인 법이 특별히 배반자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예수를 반대하는 거짓 증인이 20명 이상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너무 모순되고 너무 명백하게 날조된 것이어서 산헤드린 회원들조차도 그 엉터리 연기에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였다. 예수는 그곳에서 이 위증자들을 온화한 모습으로 지켜보셨으며, 그의 이러한 침착함에 거짓 증인들은 어쩔 줄 모르게 당황하였다. 거짓 증언이 진행되는 동안 주(主)는 한 마디

말씀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여러 가지 거짓 고소에 대하여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184:3.7 (1982.8) 그들 중에서 비슷하게라도 두 증인이 일치될만한 첫 번째 증거는, 예수가 성전에서 강연하는 중에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손을 쓰지 않고 다른 성전을 삼일 안에 세우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증언한 것이었다. 그가 언급된 말씀을 하면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는 사실을 잊혀놓더라도, 그것은 예수가 한 말씀에 정확한 것이 아니었다.

184:3.8 (1982.9) 대제사장이 “이 고발들의 어떤 것에 대하여도 너는 대답하지 않느냐?”고 고함을 질렀지만, 예수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 거짓 증인들이 증언하는 동안 그곳에 조용히 서 계셨다. 이 위증자들의 말속에서 증오심, 광신, 그리고 사악한 과장의 성격이 너무나 잘 드러났으므로 자기들의 말에 스스로 얽혀들었다. 그들의 거짓 고소에 대한 최고의 반박은 바로 평온하고도 장엄한 주(主)의 침묵이었다.

184:3.9 (1983.1)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시작된 직후에, 안나스가 도착하였으며 가야바 옆에 있는 자리에 앉았다. 안나스가

마침내 일어나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한 예수의 협박은 자신에 대한 세 가지 고발을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84:3.10 (1983.2) 1.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험한 중상모략자이다. 그가 불가능한 일을 가르쳤거나 아니면 그들을 속였음.

184:3.11 (1983.3) 2. 그는 거룩한 성전에 폭력적인 일을 선동하는 광신적 혁명가였음. 아니면 그가 어떻게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184:3.12 (1983.4) 3. 손을 쓰지 않고 새 성전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였으니 그는 마법을 가르친 것임.

184:3.13 (1983.5) 예수가 유대 법에 죽음이 합당한 범죄를 지었다고 산헤드린 전체가 이미 합의하였으나, 그들은 이제 빌라도가 그들의 죄수에게 사형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그의 행위와 가르침들에 관하여 더 확실한 고발들을 개발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 예수를 합법적으로 죽이기 이전에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안나스는 예수가 사람들 속에 풀어 놓기에는 위험한

선생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마음을
정하였다.

184:3.14 (1983.6) 그러나 가야바는 주(主)가 완전한 침착성과
흔들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 그곳에 서 계시는 모습을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적어도 이렇게 하면
그 죄수가 입을 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예수 옆으로 달려가서,
주(主)의 얼굴 앞에 비난조로 손가락을 흔들면서 말했다;
“내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네게 간청하겠는데,
네가 하느님의 아들인 해방자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는 가야바에게 대답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얼마 안 있으면 나는 곧 아버지께로 가며, 사람의 아들은
곧 능력을 부여받고 다시 하늘의 무리들을 다스릴 것이다.”

184:3.15 (1983.7) 예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그 대제사장은
너무나 화가 치밀어서, 자기 겹옷을 찢으며 고함쳤다: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냐? 보라, 신성을
모독하는 이 자의 말을 너희들 모두 들었다. 율법을 어기고
신성을 모독하는 이 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한 음성으로 대답하기를
“그는 죽어 마땅하다; 그를 십자가에 달자.”

184:3.16 (1983.8) 예수는 자신의 증여 임무와 관련된 한 가지 질문을 제외하고는 안나스와 산헤드린 회원들의 어떤 질문에도 관심을 현시하지 않았다.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인지를 묻자, 그는 즉각적으로 명확하게 단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184:3.17 (1983.9) 안나스는 재판을 계속하여, 로마법과 제도에 따라서 예수를 확실한 내용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갖추 후에 빌라도에게 제시하려고 하였다. 의원들은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을 지으려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 날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어서 정오가 지난 후에는 세속적인 일은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는 이유와 그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오직 유월절 축제 기간 동안에만 예루살렘에 머물기 때문에 유대의 로마 행정부가 있는 케자리아로 언제 돌아갈지 몰라 걱정되었기 때문이었다.

184:3.18 (1983.10) 그러나 안나스는 그 법정을 통제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예수가 가야바에게 너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자, 그 대제사장은 그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얼굴을 세게 때렸다. 법정의 다른 구성원들도 방을 나가면서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손바닥으로 그를 때리자 안나스는 정말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하여 무질서와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 예수에 대한 산헤드린 재판의 첫 공판이 4시 30분경에 끝났다.

184:3.19 (1984.1) 전통에 눈이 멀고 편견을 가진 30명의 거짓 재판관들은 거짓 증인들과 함께 한 우주의 정의로운 창조자를 주제넘게 재판하고 있다. 그리고 흥분한 이 고소자들은 이 하느님-사람의 장엄한 침묵과 뛰어난 인내심 때문에 격분하고 있다. 그의 침묵은 도저히 견디기에 힘들며; 그의 말솜은 대담하게 도전적이다. 그는 그들의 협박에 동요되지 않으며 그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하느님을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런 때에도 그는 이들을 사랑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다.

제 4 장. 굴욕의 시간

184:4.1 (1984.2)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사형 선고를 내리는 문제의 경우에는 두 번 법정이 열려야 했다. 두 번째의 법정은 첫 번째 다음 날 열려야 했으며, 그 중간 시간은 법정의 위원들이 금식하고 애도하면서 지내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자기들의 결정을 확정하기 위해서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그들은 오직 한 시간을 기다렸을 뿐이었다. 그 동안 예수는 성전 경비병들이 지키는 가운데 접견실에 남아 계셨으며, 그들은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함께 갖은 방법으로 사람의 아들을 모욕하면서 즐거워하였다. 그들은 그를 조롱하였고, 침을 뱉었으며, 심하게 때렸다. 그들은 회초리로 얼굴을 때리면서 말하기를 “네가 해방자라면 너를 때린 것이 누구였는지 맞혀보아라.” 저항하지 않는 갈릴리 사람을 욕하고 학대하면서, 그들은 한 시간 내내 그렇게 계속하였다.

184:4.2 (1984.3) 무지하고 무정한 경비병들과 하인들 앞에서 고통당하고 조롱을 받는 비참한 시간 동안, 요한 세베대는 옆에 있는 방에서 혼자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가혹 행위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예수는 요한에게, 그의 머리를 끄덕이면서, 물러가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주(主)는 자기 사도가 그 방에 남아서 이러한 모욕적인 대우를 보게 된다면, 요한의 분개심이 치솟아 올라서 참지 못하고 덤벼들어서 죽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184:4.3 (1984.4) 이 끔찍한 시간 동안 예수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모든 이 우주의 하느님과 개인성 관계 속에 결합된 온화하고 감성적인 인류의 혼에게, 소위 산헤드린 법정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속한 위원들의 본을 따라 그를 학대하도록 자극을 받은, 무지하고 잔인한 경비병들과 하인들의 처분대로 보낸 이 끔찍한 시간보다 더 쓰라린 굴욕의 잔은 없었다.

184:4.4 (1984.5) 천상의 지능존재들이 사랑하는 주권자께서 죄로 어두워진 불행한 유란시아 구체에서 자신의 무지하고 잘못 인도된 창조체들의 뜻에 복종하는 광경을 보았을 때, 전 우주로 퍼져나간 그들의 분개의 전율이 얼마나 심했는지 인간의 가슴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184:4.5 (1984.6) 사람이 영적으로 얻을 것이 없고 지능적으로 성취할 것이 없는 것을, 그렇게 모욕하고 육체적으로 공격하고 싶도록 유도하는 사람 속에 있는 이 동물적 특색은 도대체 무엇인가? 지혜에서 그리고 영적 달성에서

우월한 사람들에게서 그 자체가 휘어질 것을 찾는 악한 야만성이, 반(半)문명화된 사람 속에 아직도 숨어있다. 그들이 반항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육체적으로 공격하면서 어떤 형태의 동물적 기쁨을 나타낼 때, 우리는 문명화된 것으로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의 악한 야비함과 야만적인 만행을 목격한다. 이러한 모욕과 조롱 그리고 구타가 주(主)께 가해졌을 때, 그가 방어하지 않은 것이지 방어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예수는 패배한 것이 아니며, 물리적 감각에서 대항하지 않았을 뿐이다.

184:4.6 (1985.1) 이것들은 광대하고 멀리 퍼진 우주의 조물주, 유지자, 구원자로서 그의 길고도 사건 많은 생애 중에서 주(主)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들이다. 사람에게 하느님을 계시하는 충만한 일생을 살아왔으며, 이제 예수는 사람을 하느님께 계시하는 새롭고도 전례가 없는 일을 만드는 데 종사되고 있다. 예수는 지금, 창조체 개인성 고립의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는 최종적인 승리를 세상에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하느님의 아들이로서의 정체성의 실현을 최종적으로 성취해 왔다. 예수는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사실을 단언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극의 그리고 장엄한 체험의

사실과 진리에 근거하여, 그는 모든 왕국의 믿는 자에게, 그는 그가 그의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자신과 하나가 되라고 타이른다. 예수의 종교 안에서 살아있는 체험은, 그와 같이 분명하고 확실한 기법이 되어, 그로써 영적으로 고립되고 조화우주적으로 고독한 이 땅의 필사자들이, 개인성 고립을 그리고, 그로 인한 모든 두려움이 결과들 그리고 그에 연관된 어떤 도움도 없는 느낌들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늘의 왕국의 형제우애적 실체들 안에서, 하느님의 신앙의 아들은 개인에서 그리고 행성에서 둘 모두에서의 자아의 고립으로부터 최종적 해방을 발견한다. 하느님을-아는 신자는 우주 규모—완전 달성의 신성한 운명의 영원한 실현과 연관되는 높은 곳의 시민관계—위에서 점점 증가하는 영적 사회화구현의 황홀함과 웅장함을 체험한다.

제 5 장. 두 번째 열린 법정

184:5.1 (1985.2) 5시 30분에 법정이 다시 속개되었고, 예수는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 옆방으로 끌려갔다. 빌라도에게 제시될 고소장을 법정에서 작성하기 시작하는 동안 이곳에서 로마 군인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감시하였다. 안나스는 신성모독죄 만을 가지고서는

빌라도를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연관-동료들에게 분명히 하였다. 두 번째 열린 법정에서 유다도 참석하였지만, 증언은 하지 않았다.

184:5.2 (1985.3) 이번에 열린 법정은 반시간 밖에 진행되지 않았으며, 빌라도 앞으로 가기 위하여 자리를 옮겼을 때는, 그들은 세 가지 항목으로 사형이 합당하다는 예수의 기소장이 작성되었다;

184:5.3 (1985.4) 1. 그는 유대 나라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자임; 그는 민족을 속였고 반란을 일으키도록 선동하였음.

184:5.4 (1985.5) 2. 시저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사람들을 가르쳤음.

184:5.5 (1985.6) 3. 새로운 왕국을 창설하는 자가 되고 왕이 될 것을 주장함으로써 황제를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고자 하였음.

184:5.6 (1985.7) 이러한 진행 전체는 변칙적인 것이었고 유대인 법에도 전혀 어긋나는 것이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삼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에 관하여 증언하였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문제에서도 두

사람의 일치된 증인이 나타나지 않았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도, 변론을 위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예수께 그 의미를 묻지도 않았다.

184:5.7 (1985.8) 법정이 그에게 일관되게 죄를 씌울 수 있는 것은 신성모독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것도 전적으로 그 자신의 고백에 입각한 것이었다. 신성모독에 관한 것에서도 그들은 사형선고를 위한 공식 투표를 하지 않았다.

184:5.8 (1985.9) 그들은 이제 빌라도에게 가져가기 위하여 세 가지 기소 조항을 작성하려고 하였는데, 그 조항들은 증언도 듣지 않은 것이었고 기소된 죄수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었다. 이 일이 끝나자, 바리새인 세 사람이 자리를 떠났으며; 그들도 예수가 죽게 되기를 바라기는 하였지만, 증인도 없이 그리고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반대하였다.

184:5.9 (1986.1) 예수는 산헤드린 회원의 법정에서 다시 나가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의 순결한 일생을 재판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을 원치 않았다. 예수는 빌라도 앞에서 낭독되는 것을 듣기까지 그들의 공식적인 기소장을 (사람으로서는) 알지 못하였다.

184:5.10 (1986.2) 예수가 요한과 경비병들과 함께 같은 방에 계시는 동안, 그리고 두 번째 법정이 열리고 있는 동안, 대제사장 저택에 있던 부인들 몇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그 색다른 죄수를 보려고 그곳에 와서, 그 중의 하나가 그에게 “네가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냐?”라고 물었다. 그리고 예수는 대답했다; “내가 네게 말하여도, 너는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게 물어보아도, 너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184:5.11 (1986.3) 산헤드린 회원들의 법정에서 매우 불의하고 불법적으로 선포한 사형 선고를 빌라도 앞에서 확정하기 위하여, 예수는 그 날 아침 6시에 가야바의 집에서 끌려가셨다.

제 185 편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

185:0.1 (1987.1) 같은 날인 서기 30년 4월 7일, 금요일 아침 6시가 조금 지나서, 예수는 시리아 영주의 직접 감독 아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미아를 다스리는, 로마 행정관인. 빌라도 앞으로 끌려왔다. 주(主)가 로마 총독 앞으로 현존 안으로 끌려가셨을 때, 그는 묶여 있었고, 그의 옆에는 성전 경비병들이 서 있었으며, 50명 정도의

고소자들이 따라왔으며, 그들 중에는 산헤드린 법정 위원들(주로 사두개인들), 가롯 유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야바와 사도 요한이 포함되어 있었다. 안나스는 빌라도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185:0.2 (1987.2) 빌라도는 전 날 저녁에 사람의 아들을 체포하는 일에 로마 군인들을 동원시키기 위하여 그의 허락을 얻으러 왔던 사람들로부터, 예수가 일찍 자기 앞으로 끌려올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침 일찍 방문하는 이 무리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깨어나서 준비하고 있었다. 이 재판은 안토니아의 요새에 붙어있는 집정관 관저 앞에서 열기로 계획되었는데, 그곳은 빌라도가 그의 아내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렀을 때 본부로 사용하는 장소였다.

185:0.3 (1987.3) 빌라도는 예수에 대한 심문을 대부분 집정관 집무실 안에서 했지만, 공개적인 심문은 정문으로 연결된 바깥 계단 위에서 행해졌다. 이것은 유대인에 대한 양보이었는데, 그들은 유월절 준비일에 누룩을 사용할 지도 모르는, 그 어떤 이방인 건물에도 들어가기를 거절하였다. 그러한 행위는 그들을 예식적으로 부정하게

만들고, 그로서 오후의 감사 만찬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해가 진 뒤에, 그들이 유월절 저녁 만찬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을 받기 전에, 그들이 정화 예식에 복종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185:0.4 (1987.4)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합법적으로 살해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면서 양심에 전혀 가책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로 인한 어떤 구애도 받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례적인 청결과 전통적인 규칙에 대한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따졌다. 그리고 시간과 영원의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인간 행복에 대한 사소한 일들에는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오히려 신성한 특성의 높고 거룩한 의무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직 이 유대인들만은 아니다.

제 1 장. 본디오 빌라도

185:1.1 (1987.5) 만일 본디오 빌라도가 작은 식민지들의 합리적인 좋은 총독이 아니었다면, 티베리우스가 그를 10년 동안이나 유대 지방의 대리인으로 남아있게 거의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꽤 좋은 행정-관리자이기는 하였으나, 도덕적으로는 비겁한 사람이었다. 그는

유대인의 총독으로서 자신의 임무의 특성을 깨닫기에 충분할 만큼 도량이 넓지 못하였다. 그는 이 히브리인들이 대단한 종교, 그들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수백만의 히브리인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면서 예루살렘을 자기들 신앙의 성지로 바라보고 있고 산헤드린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법정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185:1.2 (1988.1)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미움은 일찍부터 현시되기 시작하였다. 모든 로마 식민지들 중에서, 유대 지역보다 더 다스리기 힘든 곳은 없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내포되어 있는 문제들을 실제로 납득한 적이 없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총독으로 부임한 초기에 거의 치명적이고 자멸할만한 일련의 실책을 범하였었다. 그리고 이 실책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그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싶을 때에는, 모두 반란을 일으킬 듯한 행동을 취하였고, 빌라도는 곧 승복하였다. 행정관의 이러한 명백한 우유부단, 혹은 도덕적 용기의 부족은 주로 그가 유대인들과 가졌던 몇 번의 논쟁들에 대한 기억에서

기인되었으며, 그 때마다 그들이 그를 이겼기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자기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티베리우스로부터 자기 지위를 박탈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음을 알았으며, 그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총독을 크게 불리하게 만드는 일에 이 사실을 이용하였다.

185:1.3 (1988.2) 유대인들에 대한 빌라도의 미움은 몇 차례의 유감스러운 충돌의 결과로 발생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우상 경배를 상징하는 모든 형상들을 배격하는 그들의 뿌리 깊은 선입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전임자의 수하에 있는 로마 군인들의 실천 관행에 따라, 자기 군인들이 시저의 형상을 새긴 기를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였던 것이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많은 사람들이 5일 동안이나 빌라도 앞에 나아와 군기(軍旗)에서 이 형상들을 제거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는 사정없이 그들의 청을 거절하였으며 즉시 사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빌라도는 자신이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강한 종교적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목숨을 바친다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도전적인 태도로 자기 저택 앞에 몰려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로, 죽을 각오가 되어있다는 말을 전하였을 때 그는 크게 당황하였다. 그 때 빌라도는 자신이 기꺼이 실행하지도 못할 말로 위협하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결국 굴복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군인들의 군기에서 형상을 제거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그가 집행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위협을 가하면서 그의 약점을 발견했던 이 방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영도자들의 변덕에, 자신이 점점 더 넓게 종속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다.

185:1.4 (1988.3) 그 이후에 빌라도는 이렇게 앓은 위신을 되찾기로 결심하였고, 그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전 벽에 황제의 방패들을 걸어 놓았는데, 그것은 시저 경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었다. 유대인들이 항의할 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그들의 항의를 거절하자, 그들은 즉시 로마에 상소하였고, 황제는 감정을 해치는 그 방패들을 치우라고 즉각적으로 명하였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그 전보다도 더욱 존경심이 낮아지게 되었다.

185:1.5 (1988.4) 유대인들이 그를 심히 미워하게 된 또 다른 사건은, 큰 종교적 축제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충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로를 건설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가 감히 성전 재정에서 돈을 취하려고 한 일이었다. 유대인들은 오직 산헤드린만이 성전 재정을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빌라도의 이러한 주제넘은 통치에 대항하여 끊임없이 비난하였다. 이러한 결정 때문에 20회 이상의 폭동이 일어났으며 많은 피를 흘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심각한 소요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것 때문에 많은 갈릴리인 들이 학살을 당하였는데, 심지어는 제단에서 경배하다가 학살되기도 하였다.

185:1.6 (1988.5) 우유부단한 이 로마인 통치자가 유대인들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를 희생의 제물로 삼았지만, 그가 결국은 성전에서 쓰는 그릇들이 묻혀있다고 주장하는 게리짐 산으로 군대를 끌고 간 거짓 메시아의 자칭(自稱)과 관련된 불필요한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한 결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일은 의의(意義)깊은 것 이었다; 그가 약속한 대로, 거룩한 그릇들이 묻혀있다는 장소를 찾아내지 못하게 되자 격렬한 소요가 일어났었다. 이 에피소드의 결과로, 시리아의 영주는 빌라도에게 로마로 가도록

명하였다. 티베리우스는 빌라도가 로마로 가고 있을 때 죽었으며, 그는 유대 지방의 행정관으로 재임명 받지 못하였다. 그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허락한 유감스러운 비난에서 결코 충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는 새 황제의 눈에서도 벗어나고, 퇴직하여 로잔 지방으로 갔으며, 나중에 그곳에서 자살하였다.

185:1.7 (1989.1)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는, 왕국 복음을 믿은 페니키아인이었던 그녀의 시종드는-하녀의 말을 통하여 예수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다. 클라우디아는 빌라도가 죽은 후에 그 기쁜 소식의 전파로 두드러지게 정체성을 확인하기 시작하였다.

185:1.8 (1989.2)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일들 대부분이 이 비극적인 금요일 오전에 일어났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여 감히 빌라도에게 지시할 수 있었는지—예수를 심문하기 위해 6시에 일어나도록 함— 그리고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는 자기들의 요구를 그가 거절할 경우에는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그를 고소하겠다고 서슴없이 위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85:1.9 (1989.3) 유대인 통치자들과 불편한 관계에 빠져들지 않은
덕망 있는 로마 총독이었다면, 그들의 허위 고발에 그
자신이 결백하며 결함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이러한
피에 굶주린 종교적 광신자들이 죽이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로마 정부는 2-등급의 빌라도를 보내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도록 하였을 때, 이미 큰 실책, 세상의
관련사들 중에서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실수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다. 티베리우스는 제국 안에서 가장 힘 있는
지방 행정-관리자를 보냈어야 했다.

제 2 장. 빌라도 앞에 나타나신 예수

185:2.1 (1989.4) 예수와 그를 고소하는 자들이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 모였을 때, 그 로마 총독이 나와서, 모여든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물었다,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떤 고발을
가자고 왔느냐?” 자기들끼리 예수를 암살하자고
주장하였던 사두개인들과 평의원들은 빌라도에게로 가서,
어떤 고소 이유도 자진하여 정확하게 말하지 말고 예수에
대한 사형 집행 선고를 확인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므로 산헤드린 회원들의 대변인이
빌라도에게 나가서 대답하였다: “만일 이 사람이 악을 행한

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를 당신께 끌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185:2.2 (1989.5)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에 대한 고소 내용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지난 밤 내내 그의 죄에 대하여 심의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대답했다; “너희가 정확한 고소 내용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너희는 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희 자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지 않느냐?”

185:2.3 (1989.6) 그러자 산헤드린 법정의 사무관이 빌라도에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형에 처하는 것은 우리에게 합법적이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소란하게 하는 이 자는 그가 말한 것과 행동한 것에 대하여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판결을 허락 받기 위하여 당신에게 왔습니다.

185:2.4 (1989.7) 모든 것을 모면하는 이러한 시도를 가지고 로마 총독 앞에 왔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산헤드린 회원들의 증오심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공정성과 명예 그리고 위엄을 그들이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들 지배받는

시민들이 자기들 지방의 총독 앞에 나와서, 한 사람에게 대하여, 그에게 공정한 재판을 잘 제공하기도 전에, 더구나 그에 대한 분명한 죄목도 내밀지도 않은 채, 처형을 선포하라 요구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일인가!

185:2.5 (1989.8) 빌라도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가 행한 것을 조금 알고 있었으며, 예수께 씌우려고 하는 고소 내용은 유대인의 종교법을 어겼다는 것이리라고 추측하였으므로; 그는 이 사건을 그들 자신들의 법정에서 처리하도록 되돌려 보내고자 하였다. 또 한편, 빌라도는 그들이 지독한 시기심의 증오로 경멸하게 된 자기 동족의 한 명에 대하여서도 사형 선고를 내리거나 집행하는 권한이 없음을 그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고백하도록 만든다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

185:2.6 (1990.1) 부분적으로 유대교로 개종하였다가 후에는 예수의 복음에 대해 잘 성숙된 신자가 된 그의 아내 클라우디아로부터, 빌라도가 예수와 그의 가르침에 대해 보다 자세히 들은 것은, 자정이 되기 직전인 불과 몇 시간 전이었으며, 예수를 비밀리에 체포하는 일에 로마 군인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락을 내린 후였다.

185:2.7 (1990.2) 빌라도는 이 심문을 연기시키고 싶었지만, 유대인 영도자들이 이 소송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때가 유월절 준비일의 오전 시간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금요일이 되는, 이 날은 휴식과 경배의 유대인 안식일의 준비일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

185:2.8 (1990.3) 이들 유대인들의 접근에서 우러나오는 불경스런 태도에 심히 예민한 빌라도는 예수를 재판도 없이 사형을 선고하라는 그들의 요구를 순순히 따르고 싶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 죄수에 대한 그들의 고소장을 제시하도록 하면서 잠시 기다려 본 후에, 다시 그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나는 재판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에 대하여 서면으로 고소장을 제시하기 전에는 그를 심문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185:2.9 (1990.4) 대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이 빌라도의 이 말을 듣고, 법정 사무관에게 손짓하였으며, 그가 예수에 대한 기소문을 빌라도에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기소장은 다음과 같았다:

185:2.10 (1990.5) “우리 산헤드린 법정은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 민족을 선동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임을 발견하였다:

185:2.11 (1990.6) 1. 우리 민족을 사교에 빠뜨리고 국민들을 반란으로 선동하였음.

185:2.12 (1990.7) 2. 국민들이 시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금지시켰음.

185:2.13 (1990.8) 3.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하며, 그리고 새로운 왕국의 건립을 가르침.”

185:2.14 (1990.9) 예수는 이 고소 내용들의 어떤 것도 정식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없으며, 법적으로 선고를 받은 적도 없었다. 이들 고소 내용들이 처음 낭독될 때에는 그는 듣지 못하였지만, 빌라도는, 경비병들이 그를 지키고 있는 집정관 관저에서 그를 데려오도록 하였으며, 이들 고소 내용들이 예수가 듣는 가운데서 반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5:2.15 (1990.10) 예수는 이러한 죄목들을 들었을 때, 그의 고발인들과 요한 세베대도 마찬가지로였지만, 이전의

유대인 법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는 들어본 적이 없었음을 잘 아셨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거짓 고소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 고소에 대하여 대답하라고 빌라도가 그에게 명하였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빌라도는 모든 것들이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너무나 놀랐으며 예수의 침묵과 대범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므로 그 죄인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사적(私的)으로 그를 심문하기로 결정하였다.

185:2.16 (1990.11) 빌라도는, 예수가 피에 굶주린 고소자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침묵으로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민과 슬픔이 가득찬 애정의 빛을 띠고 그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시는 광경에서, 마음에서는 혼란스러웠고, 그의 가슴에서는 유대인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영에서는 강력한 동요가 일어났다.

제 3 장. 빌라도의 사적인 심문

185:3.1 (1991.1) 빌라도는 경비병들을 바깥 복도에 남겨둔 채, 아무도 없는 방으로 예수와 요한 세베대만을 데리고 갔으며, 죄수에게 앉으라고 권하고, 자신도 그 옆에 앉아서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빌라도는 그에 대한 첫 번째 기소

항목; 민족을 사교에 빠뜨리고 반란을 선동한다는 내용을 자기는 믿지 않는다고 그에게 확인하면서 예수와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물었다, “네가 시저에게 내는 세금을 거부하라고 한번이라도 가르친 적이 있느냐?” 예수는 요한을 가리키시면서 말하기를 “저 사람이나, 아니면 내 가르침을 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보라.” 그러자 빌라도가 세금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 요한에게 질문하였으며, 요한은 주(主)의 가르침에 대해 증언하였고 예수와 사도들이 시저와 성전 양쪽 모두에 세금을 물었음을 설명하였다. 빌라도는 요한에게 질문을 마친 후에 “내가 너와 말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요한은 이 문제를 결코 밝히지 않았다.

185:3.2 (1991.2)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예수께 더 질문하기 위해 돌아서서 말했다; “자, 이제는 너에 대한 세 번째 죄목에 대한 것인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빌라도의 음성이 사뭇 진지한 빛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행정관에게 미소를 지으시며 말했다; “빌라도여, 당신이 스스로 이것을 묻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고소하는 저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질문하는 것이냐?” 그러자 조금 분개하는 음성으로 총독이 대답하였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동족인 사제들이 너를 끌고 와서 너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라고 내게 요청하였다. 나는 그들의 고소 내용들이 정당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며, 나는 단지 네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보려는 것이다. 내게 말하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려고 애썼느냐?”

185:3.3 (1991.3) 그러자 예수는 빌라도에게 말했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냐?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가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도록 내 제자들이 싸웠을 것이 분명하다. 여기 네 앞에 이러한 것들에 묶인 채로 있는 나의 현존이, 내 왕국이 영적 영토라는 것, 신앙을 통하여 그리고 사랑에 의해 하느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의 형제신분과 같은 것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185:3.4 (1991.4) “그러면 어찌되었건 네가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말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대답했다; “그렇다. 나는 그러한 어떤 왕이다, 내 왕국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신앙

아들들의 가족이며, 나는 이 목적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를 보여주어야만 했고 그리고 하느님의 진리를 증언까지 해야만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너에게 선언하고 있다.”

185:3.5 (1991.5) 그러자 빌라도는 반은 조롱으로 그리고 반은 진정으로 말했다, “진리, 무엇이 진리이냐—누가 알겠는가?”

185:3.6 (1991.6) 빌라도는 예수의 말씀을 헤아릴 수 없었고, 그의 영적 왕국의 본성을 납득할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죄수가 죽음으로 값을 치뤄야 할만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이제 확신하였다. 온화하고 그리고 지쳐있는, 그러나 장엄하고 그리고 깨끗한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현세적인 권좌에 올라서려는 갈망을 가진 거칠고 위험한 혁명가가 아님을 확신하는 데에는, 빌라도조차도 예수를 직접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충분했다. 빌라도는 “지혜로운 사람이 곧 왕이다.”라고 선언하는 스토아 학자들의 가르침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가 그 자신이 왕이라고 스스로 칭했을 때, 예수가 의미하는 것을 자신이 조금은 납득한다고 생각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위험한 선동자이기 보다는 무해한 공상가, 순진한 광신자에 불과하다고 속속들이 확신했다.

185:3.7 (1991.7) 주(主)께 질문을 마친 후에, 빌라도는 밖으로 나가 예수를 고소하는 자들과 사제들에게로 가서 말했다; “내가 이 사람을 심문하였지만, 그에게서 아무 결함도 발견할 수 없다. 나는 너희가 그를 반대하도록 만든 고발 내용들의 죄가 그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가 자유롭게 풀려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크게 화가 나서 동요하였고, 예수를 죽여야한다고 격렬하게 고함을 질렀다; 산헤드린 회원 중 한 사람은 직접 빌라도 옆으로 올라와서 말했다;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지방을 두루 다니며 민족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는 해독을-만드는 자이며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 사악한 자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오래도록 후회할 것입니다.”

185:3.8 (1992.1) 빌라도는 예수에게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안다고 외치는 말들에 심한 압박을 받았다; 그래서, 그가 갈릴리에서 그의 일을 시작하였다는 그들의 말을 듣자, 그 때 유월절에 참여하여 그 성(城)안에 머물고 있는 헤롯에게로 예수를 보냄으로써, 자신은 그 사건을 결정짓는 책임을 회피하고, 최소한 생각할 시간을 벌려고 생각했다. 또한 빌라도는, 이렇게 함으로써 관할권의 문제에 걸쳐있는 수많은 오해 때문에, 한 때 자신과 헤롯 사이에 존재했었던 좋지 않은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185:3.9 (1992.2) 빌라도는 경비병들을 불러서 “이 사람은 갈릴리인이다. 그를 헤롯에게로 당장 데려가라, 그가 심문을 마치거든, 그가 발견한 것들을 내게 보고하라.”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헤롯에게 데리고 갔다.

제 4 장. 헤롯 앞에서의 예수

185:4.1 (1992.3) 헤롯 안티파스는 예루살렘에 들릴 때, 헤롯 대왕이 소유했던 옛 마카비 궁전에 머물렀으며, 예수가 성전 경비병들에 의해 끌려간 곳은 전에 왕의 처소였던 그 궁전이었고, 고소하는 자들과 더 많은 군중들이 그의 뒤를

따라왔다. 헤롯은 오래 전부터 예수에 대하여 들었으며, 그에 대하여 매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날 금요일 아침에, 그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앞에 섰을 때, 이 사악한 이두미아인은 그가 바로 공공 건물들 중 하나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자기 아버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에 대해서 공정한 결정을 해달라고 수년 전에 세포리에서 자기에게 항변하며 서 있었던 그 소년이라는 것을 한 순간도 기억하지 못하였다. 헤롯이 알고 있는 한, 예수의 일이 주로 갈릴리에 집중되었을 때, 그에 대해서 크게 염려한 적은 있었지만, 그는 예수를 본적이 없었다. 지금 그가 빌라도와 유대인들에게 잡혀 있음으로, 헤롯은 앞으로 그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느끼면서도, 그를 보고 싶어 하였다. 헤롯은 예수에 의해서 행해진 기적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으며, 그가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싶어 하였다.

185:4.2 (1992.4) 그들이 예수를 헤롯 앞으로 끌고 왔을 때, 그 영주는 그의 위엄 있는 외모와 평온하고 침착한 얼굴 표정에 깜짝 놀랐다. 약 15분 동안 헤롯이 예수께 질문하였지만, 주(主)는 대답하지 않았다. 헤롯은 감히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보라고 말하면서 조롱하였지만,

예수는 그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으며 그의 조롱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185:4.3 (1992.5) 그리고 나서 헤롯은 사제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였으며, 그들의 고소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아들이 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빌라도가 들은 것들보다 더 많은 모든 것들을 들었다. 마침내, 예수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리라는 것과 자기를 위하여 기적을 베풀지도 않으실 것을 알고, 헤롯은 몇 차례 그를 희롱한 후에, 왕족이 입는 자주색 낡은 예복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냈다. 헤롯은 유대 땅 안에서 예수를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예수를 마침내 갈릴리에서 몰아내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기는 하였지만, 그를 죽이는 책임이 빌라도에게 지워졌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였다. 헤롯은 세례자 요한을 죽인 결과로 자기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충분히 벗어난 적이 없었다. 한 때 헤롯은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난 요한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진 때도 있었다. 감히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비난하였던 노골적이고 성미가 사나운 그 선지자에 비하여, 예수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러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

제 5 장. 빌라도에게 다시오신 예수

185:5.1 (1993.1) 경비병들이 예수를 다시 빌라도에게 끌고 왔을 때, 그는 집정관 관저 앞에 있는 계단에 나와 있었고, 그곳에는 재판 석이 차려져 있었으며, 사제들과 산헤드린 회원들을 불러 모은 후에 말했다; “너희는 이 사람이 민족을 사교에 빠지게 하였고,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하였으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여 내 앞에 데리고 왔다. 나는 그를 심문하였지만 그가 이 고소 내용대로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사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결함도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를 헤롯에게로 보냈으며, 그 영주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보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죽음으로 값을 치를만한 것이 없다. 만일 너희가 그에게 단련이 필요하다고 여전히 생각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를 풀어주기 전에 매질 할 용의가 있다.”

185:5.2 (1993.2) 유대인들이 예수의 석방을 반대하여 항의하는 소리를 막 지르려고 하는 바로 그 때에, 하나의 큰 무리의 군중들이 유월절 축제를 드높이는 한 명의 죄수 석방을 빌라도에게 요청하기 위하여 집정관 관저로 행진하며 다가왔다. 한동안은, 로마 총독들은, 유월절 기간에 감옥에 갇힌 한 명의 죄수나 사형수가 사면(赦免) 받는 것을 민중들이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군중들이 수감자 한 명의 석방을 요청하기 위해 그의 앞으로 나오고 있었고, 예수가 아주 최근에 군중들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받았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는 예수가 지금 재판석 앞에 있는 하나의 수감자이니, 이 무리에게 유월절에 베푸는 선한 뜻의 표시로 그가 이 갈릴리 사람을 풀어줄 것을 제안하면 그것으로써, 이 곤경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185:5.3 (1993.3) 무리들이 건물의 계단위로 닥쳐 올라오게 되면서, 빌라도는 그들이 바라바라는 자의 이름을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바라바는 어느 사제의 아들이고, 유명한 정치적 선동가요 잔인한 강도였으며, 여리고 길에서 저지른

강도와 살인 현장에서 최근에 체포된 자였다. 이 사람은 유월절 축제가 끝나자마자 사형 당하게 되어 있었다.

185:5.4 (1993.4) 사제들이 예수를 자기에게 끌고 왔으며, 특정한 기소 내용들로 인하여 그를 사형에 처하려 하지만, 자기는 그를 죽일만한 이유가 그 사람에게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빌라도가 일어서서 군중들에게 설명하였다. 빌라도는 말했다; “그러니, 내가 어느 죄수를 너희에게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살인자인 이 바라바냐, 아니면 이쪽에 있는 갈릴리의 예수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자, 사제들과 산헤드린 회원들이 모두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쳤다. “바라바, 바라바!” 그리고 사제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을 본 사람들은, 시끄럽게 소리치며 그의 생명을 요구하는 일에 속히 가담하여,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185:5.5 (1993.5) 불과 며칠 전만 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경외하였지만,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지금은 사제들과 통치자들의 감시를 받고 있고 빌라도 앞에서 생명이 달려 있는 재판을 받고 있는 자를 군중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 환전상과 장사꾼들을 성전 밖으로

몰아낼 때 군중의 눈에는 예수가 영웅으로 비쳐질 수 있었겠지만, 적의 수중에서 반항도 하지 않고 목숨이 달린 재판을 받고 있을 때는 그렇지 못하였다.

185:5.6 (1993.6) 빌라도는 사제들이 악명 높은 살인자를 용서해 달라고 시끄럽게 요구하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자 화가 치밀었다. 그는 그들의 살의와 증오심을 보았으며 그들의 선입견과 질투심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어떻게 하여, 고작해야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상징적으로 부르는 죄를 지은 이 사람보다도 오히려 살인자의 생명을 선택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빌라도가 이렇게 말한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에 굴복하고 있지만 메시아가 나타나 능력과 영광을 크게 나타내면서 자기들을 이방인의 속박에서 구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온화한 태도로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다가 이제는 체포되어 사형에 처하는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선생을 “유대인들의 왕”으로 취급하려는 듯한 암시에 대하여, 그들은 빌라도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보다 훨씬 더 분개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실존함에 있어서

거룩하고 명예롭게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모욕하는 듯한 말을 들었으므로, 그들 모두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고 크게 소리쳤다.

185:5.7 (1994.1) 그를 고소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예수가 결백하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고, 그가 공정하고 용기 있는 재판관이었다면, 그는 그가 무죄임을 선고하고 풀어주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성난 이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것이 두려웠으며, 그리고 그가 그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동안, 메신저 하나가 자신의 아내인 클라우디아로부터 봉합된 편지를 가져와서 그에게 건네주었다.

185:5.8 (1994.1) 빌라도는 자기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계속 진행시키기 전에, 방금 전달받은 편지를 먼저 읽어보겠다고 말하였다. 빌라도가 개봉하여 읽은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예수라고 불리는 결백하고 의로운 이 사람에게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지난 밤 꿈에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클라우디아가 보낸 이 편지는 빌라도를 심히 당황하게 하였으며 그리하여 아

문제의 판결을 지연 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자유롭게 군중 속을 돌아다니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부르짖으라고 사람들을 재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 주게 되었다.

185:5.9 (1994.2) 마침내 빌라도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번 더 힘을 쓰기로 하고, 특사를 요청하는 군중들과 유대인 통치자들이 섞여있는 군중들에게 묻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모두 한 음성으로 소리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뒤섞여 있는 군중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부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재판관인 빌라도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185:5.10 (1994.3)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한 번 더 말했다; “너희가 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하느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앞으로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해 증언할 사람이 없느냐?”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를 변호하려는 말을 들은 그들은 오직 더욱 크게 소리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185:5.11 (1994.4) 그러자 빌라도는 유월절의 죄수 사면에 관해서 그들에게 다시 호소하면서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묻겠는데, 너희가 유월절로 지키는 이러한 때에 이 죄수들 중에 내가 누구를 풀어주어야 하겠느냐?” 그리고 군중들은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시오!”라고 소리쳤다.

185:5.12 (1994.5) 그 때 빌라도는 말했다; “내가 만일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준다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리고 군중들은 다시 한 음성으로 소리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185:5.13 (1994.6) 빌라도는 사제들과 산헤드린 의원들의 직접적인 지도아래 행동하고 있는 군중들의 끈질긴 부르짖음에 의하여 위협을 당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어도 한 번 더 군중들을 달래서 예수를 구해보기로 결심하였다.

제 6 장. 빌라도의 마지막 호소

185:6.1 (1994.7) 금요일인 이 날 아침에 빌라도 앞에서 벌어진 모든 일에는 오직 예수의 적들만이 참여하고 있었다. 그를 지지하는 그의 많은 친구들은 대부분은 그가 지난밤에 체포되어 이른 아침에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발각되어 예수의 가르침을 믿었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하지 않도록 숨어 있었다. 이 때 주(主)를 죽이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군중들은 오직 그를 적이라고 맹세한 자들과 쉽게 선동되고 생각이 없는 경솔한 민중들뿐이었다.

185:6.2 (1995.1)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의 동정심에 호소하고자 하였다. 예수의 피를 보려고 외치는 그릇 인도된 폭도들의 외침을 무시하기가 두려워서, 그는 유대인 경비병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를 끌고 가서 채찍으로 때리라고 명하였다. 이것은 그 자체로 옳지 않고 불법적인 처사였는데, 로마법에 의하면 오직 십자가형에 처할 죄수에게만 채찍질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비병들은 예수께 이러한 고통을 가하기 위하여 집정관 관저의 넓은 안마당으로 끌고 갔다. 비록 그의 적들은 이러한 채찍질을 보지 못하였지만, 빌라도가 그것을 지켜보았으며, 그들이 이 악한 학대를 끝마치기 전에, 그는 채찍질하는 자들을 멈추게 하였고 예수를 자기 앞으로 끌고 오도록 손짓했다. 채찍질하는 자들은 그를 나무에 묶어 놓고, 매듭지어져 있는 채찍으로 때리기 전에, 그에게 자주색 예복을 다시 입혔으며, 가시관을 엮어서

그의 이마에 씌웠다. 그리고 그의 손에 왕을 상징하는 홀(笏) 대신 마른 갈대를 쥐어준 후에, 그들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으면서 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들 중 한 사람은 빌라도에게 그가 돌려보내기 전에 갈대를 그의 손에서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때렸다.

185:6.3 (1995.2) 그 후에 빌라도는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는 죄수를 데리고 나가서, 뒤섞여 있는 군중들에게 그를 보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분명하게 말하겠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으며, 그를 채찍으로 때렸으니, 풀어주겠다.”

185:6.4 (1995.3) 나사렛 예수는, 그의 인자하게 보이는 이마를 찌르는 가시나무 왕관을 쓰고, 낡은 자주색의 왕족의 예복을 걸치고, 그렇게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 얼룩지고, 그리고 그의 자세는 괴로움과 비탄에 젖어서 숙여졌다. 그러나 격렬한 감정적 증오심의 희생자요, 종교적 편견에 노예가 된 자들의 무감각한 가슴에 호소할만한 것은, 그 아무 것도 없었다. 이 광경이 광대한 우주 영역에 두루 강력한 전율이 일어나게 하였지만,

예수의 파멸을 이끌겠다고 마음을 정했던 자들의 가슴에 닿지 않았다.

185:6.5 (1995.4) 그들은 주(主)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을 때 처음 받았던 충격이 사라지자, 오직 더욱 큰 소리로 더욱 오랫동안 소리 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185:6.6 (1995.5) 그리고 이제 빌라도는 그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제시하였던 호소가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앞으로 걸어가서 말했다; “나는 너희가 이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도대체 그가 죽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이냐? 누가 그의 죄를 증명하겠느냐?”

185:6.7 (1995.6) 그러자 대제사장이 직접 앞으로 걸어 나와, 빌라도에게 올라가며, 성을 내면서 주장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율법이 있고, 그 율법에 의하면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자는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 때문만이 아니라, 하느님들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그리스 신화와 자기 아내의 편지가 생각났기 때문에 더욱

두려워하였으며, 이제는 예수가 하나의 신성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벌벌 떨었다. 그는 군중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면서 예수를 심문하기 위해 그의 팔을 붙들고 다시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빌라도는 이제 두려움 때문에 혼동에 빠졌고, 미신 때문에 곤혹스러워졌으며, 군중들의 고집스런 태도 때문에 초조했다.

제 7 장. 빌라도의 마지막 면담

185:7.1 (1995.7) 빌라도가 두려움으로 떨면서 예수의 옆에 앉으며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너는 실제로 누구냐?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들의 말이 무슨 뜻이냐?”

185:7.2 (1996.1) 그러나 그가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나서, 그리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도 전에 그를 다시 채찍질하도록 허락할 만큼 부당한 재판관,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연약하며 우유부단한 그 재판관이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는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실 수가 없었다. 예수는 빌라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셨지만, 그에게 대답하지는 않았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했다; “내게 말하기를 거부하느냐?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수도 있는 권한이 아직도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러자 예수가 대답했다; “너는 내게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오직 저 높은 곳에서만 허락하실 수 있을 뿐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네가 사람의 아들에게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너는 복음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네 죄가 크지 않다. 나를 배반한 자와 나를 너에게 넘겨 준 자의 죄가 더 크다.”

185:7.3 (1996.2) 예수와의 이러한 최후의 대화는 빌라도를 속속들이 소스라쳐 놀라게 하였다. 도덕적으로 겁이 많고 재판에 있어서 나약한 이 사람은 이제 예수에 대한 미신적인 두려움과 유대인 영도자들에 대한 필사자의 공포심의 이중 압박 밑에서 진통을 겪었다.

185:7.4 (1996.3) 빌라도는 다시 군중들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이 오직 종교적으로 범죄 하였음을 확신한다. 너희가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너희는 어찌하여, 그 사람이 너희 전통에 저촉되었다는 이유로 내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리라고 기대하느냐?”

빌라도가 예수를 거의 풀어주려고 하였을 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비겁한 로마 재판관에게 다가와서, 빌라도의 얼굴 앞에 보복하겠다는 손가락을 흔들면서, 군중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분노에 찬 단어들을 말했다;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당신은 시저의 친구가 아니며, 황제가 모든 것을 알도록 내가 처리할 것이요.” 이러한 공개적인 위협은 빌라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의 개인적 행운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다른 모든 고려 사항들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비겁한 총독은 예수를 재판석 앞으로 끌고 나오라고 명령했다. 주(主)가 그들 앞에 거기 서자, 그는 그를 가리키며 조롱하며 말했다, “너희의 왕을 보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하였다, “그를 없애버리라!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라!” 그러자 빌라도는 심히 빈정대고 비꼬는 투로 말했다,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박아도 되겠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은 대답하였다, “그렇소,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우리에게는 시저 외에 어떤 왕도 없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구할 어떤 희망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그가 유대인들을 무시하기를 꺼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 8 장. 빌라도의 비극적인 굴복

185:8.1 (1996.5) 사람의 아들이로서 육신화한 하느님의 아들이 여기 이렇게 서 있었다. 그는 고소장 없이 체포되었다; 증거 없이 고발 되었다; 증인 없이 재판을 받았다; 판결 없이 징벌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서 아무 결함도 발견할 수 없다고 고백한 부당한 재판관에 의해서 곧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 만일 빌라도가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면서 그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기로 생각했었다 하더라도, 그는 철저히 실패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왕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사제들과 사두개인들이 “우리에게 시저 외에는 그 어떤 왕도 없다”고 했던 선언은, 생각없는 민중들까지도 충격이었지만, 군중들이 과감히 주(主)의 이유를 지지한다 해도, 이제 예수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185:8.2 (1996.6) 빌라도는 소요나 폭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였다. 그는 유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소란의 위험성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는 최근에 시저로부터 질책을 받아들인 적이 있었으므로, 다시 위기에 처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명하였을 때 군중들은 환호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물과 대야를

가져오도록 명하였으며,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와 무관하다. 너희는 그를 죽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지만,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것을 너희가 처리하라. 군인들이 그를 끌어낼 것이다.” 그러자 군중들은 환호하며 대답했다.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게 하시오.”

제 186 편 십자가형이 있기 직전

186:0.1 (1997.1) 예수와 고소자들이 헤롯을 만나기 위해 출발할 때, 주(主)는 사도 요한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요한아, 너는 더 이상 나를 위해 할 일이 없다. 내 어머니에게 가서 내가 죽기 전에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어머니를 모셔 오거라.” 이러한 주(主)의 요청을 들은 요한은, 그의 적들 속에 그를 혼자 남겨두는 것이 달갑지 않았지만, 서둘러 베다니로 갔으며, 예수가 죽음에서 일으키신 나사로의 자매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의 온 가족들이 모여 기다리고 있는 베다니로 떠났다.

186:0.2 (1997.2) 그 날 아침나절에 여러 번에 걸쳐서, 메신저들이 예수의 재판에 대한 진행 상황 소식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전하였다. 그러나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자기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예수의 요청을 전하기 위해 요한이 베다니에 도착하기 몇 분전까지 예수의 가족들은 베다니에 이르지 못하였다. 예수가 한밤중에 체포되신 후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요한 세베대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후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맏아들을 만나기 위해 요한 세베대와 함께 즉시 길을 떠났다. 마리아와 요한이 도시에 도착하였을 때, 예수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을 로마 군인들과 함께 이미 골고다에 도착하였다.

186:0.3 (1997.3)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녀의 아들에게로 요한과 함께 출발하였을 때, 예수의 여동생 롯은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뒤에 남아있기를 거절하였다. 그녀가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하자, 그녀의 오빠 유다가 그녀와 같이 갔다. 주(主)의 나머지 가족들은 야고보의 지도 하에 베다니에 남아 있었으며, 그들의 맏형 나사렛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 끔찍한 일의 진행 상황에 대해 거의 매시간 다윗 세베대의 메신저들이 와서 보고하였다.

제 1 장. 가롯 유다의 최후

186:1.1 (1997.4)

빌라도 앞에서 예수에 대한 심문이 끝나고 주(主)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게 될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진 때는 같은 날인 금요일 아침 8시 반경이었다. 그 로마인들이 예수를 넘겨받자마자, 유대인 경비병들의 지도관은 부하들과 함께 행진하여 성전 본부로 돌아갔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회원 연관-동료들은 경비병들 바로 뒤에 쫓아갔으며, 그들이 항상 모이던 성전 안에 있는 다듬어진 돌로 지은 방으로 직행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였는지 알기 위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산헤드린의 다른 회원들을 만났다. 가야바가 예수에 대한 심문과 유죄 판결에 관하여 산헤드린 의회에 보고하고 있을 때, 유다가 자기 주(主)를 체포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일에 기여한 역할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그들 앞에 나타났다.

186:1.2 (1997.5)

이 유대인들이 모두 유다를 아주 싫어하였다; 오직 심히 업신여기는 심정으로 그 배반자를 바라보았다. 예수가 가야바 앞에서 예수의 재판기간 동안 그리고 빌라도 앞에 그가 출두해있는 동안, 유다는 자신의 배반적인 행동에 대해서 양심에 가책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의 배반자로서의 그의

봉사의 대가(代價)로 받아들이게 될 그 보상에 대해서 약간의 환멸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는 그 유대인 당국자들의 냉정함과 쌀쌀맞은 태도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비겁한 행위에 대하여 후한 보상을 받으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는 산헤드린 전체 모임에 초청되어, 그가 자기 나라에 봉사했다고 그 자신이 우쭐했던 위대한 업적의 상징으로 합당한 명예를 수여하면서 그가 칭송을 받을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하인 하나가 그에게 와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를 그 방 밖으로 불러내어 “유다여, 나는 예수를 판 대가로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라는 지시를 받았소. 이것이 당신에게 주는 보상금ियो.”라고 말했을 때, 자기중심적인 이 배반자의 놀라움이 어떠했겠는지 상상해 보라. 그렇게 말하면서 가야바의 하인은 유다에게 은전 30개—건강하고 상태가 좋은 노예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값—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건네주었다.

186:1.3 (1998.1) 유다는 대경실색하여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는 그 방에 들어가려고 되돌아 달려갔으나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그는 산헤드린에게 호소하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유다는 이 유대인 통치자들이 그를 그의 친구들과 그의 주(主)를 배반하게 하고 나서 은전 30개로 보상하려는 처사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굴욕과 환멸을 느꼈으며 철저히 낙담하였다. 그는 뉘을 잃은 채로 성전에서 걸어 나갔다. 그는 무의식중에 그 돈주머니를 자기 전대에 놓았으며, 그 전대는 사도들의 자금을 간직하는 주머니를 오랫동안 놓고 다녔던 것이었다. 그는 십자가형을 지켜보기 위하여 가고 있는 군중들의 뒤를 따라 도시를 방황하며 돌아다녔다.

186:1.4 (1998.2) 유다는 예수가 못박혀 있는 십자가를 그들이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으며, 이것을 본 그는 성전으로 달려가서 문지기를 밀고 들어가 아직도 회의를 하고 있는 산헤드린의 현존 안에 서게 되었다. 그 배반자는 숨이 턱까지 찼고 거의 미친 상태가 되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배반한 죄를 범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 무례를 범했다. 너희는 나를 모욕했다. 내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돈—한 사람의 노예에 대한 값—을 주었다. 나는 이렇게 한 것을 후회한다; 여기 너희들 돈이 있다. 나는 이 행위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다.

186:1.5 (1998.3) 유다의 말을 들은 유대인 통치자들은 그를 비웃었다. 유다가 서 있는 곳에서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그 방에서 나가라고 손짓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네 주(主)는 이미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너의 죄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은 네가 알아서 할 말이다.

186:1.6 (1998.4) 산헤드린의 회의장에서 나온 유다는 은전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성전 마루 위에 뿌려버렸다. 성전을 떠난 그 배반자는 거의 미쳐버린 상태였다. 유다는 이제 죄의 진정한 본성을 실현하는 체험을 두루 통과하고 있었다. 그릇된 행동의 모든 매력과 매혹 그리고 도취의 상태가 사라졌다. 이제 그 행악자는 홀로 서 있었고 그리고 그의 환상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실망에 빠진 혼에 대한 심판 평결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죄를 범할 때에는 매혹을 느끼고 모험적이지만. 이제 적나라하고 낭만이 없어진 사실들의 수확물과 직면해야만 한다.

186:1.7 (1998.5) 한 때 이 땅에 있는 하늘의 왕국의 대사였던 그는 이제 버림받고 고독한 상태로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다. 그의 절망감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거의

절대적인 상태였다. 도시를 빠져나가 성벽 밖에 있는 길을 지나다가, 한놈의 골짜기의 가파른 절벽에 다다르자, 낭떠러지 바위를 기어 올라갔으며, 외투 허리띠를 풀어서 한 쪽 끝은 작은 나뭇가지에 매고, 다른 쪽 끝을 자기 목에 감은 후에,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그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의 떨어는 손으로 묶었던 매듭이 풀어졌으며, 그 배반자의 몸은 아래에 있는 날카로운 바위들 위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다.

제 2 장. 주(主)의 태도

186:2.1 (1999.1) 예수가 체포되시자, 그는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의, 이 땅에서의 그의 일이 완결되었음을 아셨다. 그는 그가 처하게 될 죽음의 종류를 충분히 납득하였으며, 소위 재판이라고 불리는 그 절차들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186:2.2 (1999.2) 산헤드린 법정 앞에서 예수는 거짓으로 증언하는 고소에 대하여 답변을 거절하였다. 친구든지 적이든지 상관없이 그의 대답을 이끌어낸 한 가지 예외적인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의 자기 임무의 신성(神性)과 그 본질에 관계된 것이었다.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틀림없이 대답하였다. 호기심으로 대하는 사악한 헤롯의 현존 안에 있을 때는 답변을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빌라도 앞에서는 자신이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빌라도나 혹은 다른 진지한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만 대답하였다. 예수는 돼지 앞에 자신들의 진주를 던지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일이라고 사도들에게 가르치셨으며, 이제 자신이 가르치셨던 것을 과감하게 실천하였다. 이 때 그의 행위는, 신성한 본성의 장엄한 침묵과 근엄한 위엄이 동반된 인간 본성의 인내하는 순종을 보여주신 것이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정치적 기소 내용과 관련된 어떤 질문—그가 총독의 사법권에 속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라도 빌라도와 기꺼이 토론할 의사가 있었다.

186:2.3 (1999.3) 예수는 다른 모든 필사 창조체들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과 똑같이 자연스럽고 평범한 인간 사건들의 과정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므로, 사회적으로 근시안적이고 영적으로 눈이 먼 자신의 동료 필사자들이 꾸미는 음모들에 설득력 있는 화술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신의

순전히 인간의 힘까지도 사용하기를 거절하였던 것이다. 비록 예수가 유란시아에서 사시고 돌아가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모든 인간 생애는 자신이 창조하고 끝없이 유지하는 전 우주에 영향을 끼치고 교육될 수 있도록 계획된 엄청난 사건이었다.

186:2.4 (1999.4) 근시안적인 이 유대인들은 주(主)를 죽여야 한다고 보기 흉하게 외쳐대는 동안 그는 그곳에 서서 한 나라—,그의 땅위의 아버지의 동족인, 나라의 죽어있는 모습을 장엄한 침묵 속에서 바라보고 계셨다.

186:2.5 (1999.5) 예수는 계속적이고 근거 없는 모욕에 직면하여 위풍당당함을 나타내고 침착성을 나타낼 수 있는 유형의 인간 성격을 습득하였다. 그는 위협을 받으실 수 없었다. 안나스의 하인에 의해서 처음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하여 올바르게 증언 할 수 있는 증인을 부르는 것의 타당성을 제안하였을 뿐이다.

186:2.6 (1999.6) 처음부터 끝까지, 소위 빌라도 앞에서의 그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하늘 무리들은 그 장면에 대하여 “예수 앞에서 재판 받는 빌라도”라는 표현으로 우주에 널리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186:2.7 (1999.7) 가야바 앞에서,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모두 실패한 후에, 예수는 서슴없이 그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하였으며,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를 신성모독으로 유죄 판결한 근거로 필요로 했던 것을 그자신의 증언으로 마련해 주었다.

186:2.8 (1999.8) 주(主)는 그의 석방에 영향을 주려는 빌라도의 좋은-의미였지만, 반신반의로 하는 노력에는 최소한의 관심도 결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빌라도를 불쌍하게 보셨으며 그의 어두운 마음을 깨우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소시키려고 유대인들에게 호소한 로마 총독의 모든 시도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동적이었다. 비참한 시련을 겪는 동안 내내 그는 소박한 존엄과 허세 없는 장엄함으로 참아내셨다. 그는 그들이 그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자신을 죽이기로-나선 살인자들에게 드리워진 불성실에 그 어떤 크기의 반향도 던지지 않았다. 그들이 그를 거부하기로 선택하긴 했지만, 그가 영적 감각에서도 그들에게 실제적 민족의 영도자관계를 마지막으로 제공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단지 자격을 갖추는 작은 설명으로, 그는 그 지칭을 받아들였다.

186:2.9 (2000.1) 이러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예수는 거의 말이 없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이 하느님과 동반자관계로서 완전할 수 있는 인간 성격의 종류를 보여주고, 창조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진심으로 선택하여 살아 계신 하느님의 활동적인 아들이 됨으로서, 하느님이 창조체의 일생 속에 현시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을 모든 우주에게 보여주기 충분할 만큼 말씀하였다.

186:2.10 (2000.2) 무지한 필사자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거친 군인들과 경솔한 하인들의 희롱과 구타 그리고 학대 앞에서 보여주신 그의 인내심과 큰 자아-소유에 의해 충만하게 드러났다. 그들이 그의 눈을 가리고 나서, 조롱하며 그의 얼굴을 때리고, "나를 때린 자가 누구인지 알아 맞혀 보라."고 소리쳤을 때에도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186:2.11 (2000.3) 빌라도가, 예수가 채찍질을 당한 후, 군중 앞에 그를 내세우고 "이 사람을 보라!"고 외쳤을 때, 그는 그가 알았던 것보다 더욱 참되게 말했다. 정말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로마인 총독은, 바로 그 순간에 우주가 숨죽이며 멈춰섰고, 그 우주로부터 사랑받는 주권자가 자신의

어둠에 빠지고 타락한 필사자 주체들의 비웃음과 구타를 받는 굴욕의 주체가 되어있는 이 독특한 장면을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빌라도가 말할 때, 온 네바돈에는 “하느님과 사람을 바라보라!”는 음성이 울려 퍼졌다. 한 우주에 두루, 말이 없었던 수 백만이 그 날 이후로 언제까지나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계속하였고, 한편 하보나의 하느님, 우주들의 우주의 최극 통치자는 나사렛 사람이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우주의 필사 창조체들의 이상(理想)을 성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비길 데 없는 그의 일생 속에서 그는 사람에게 하느님을 계시하는 것에서 실패한 적이 결코 없었다. 이제, 그의 필사자 생애의 이들 최종적 에피소드들에서 그리고 자신의 이어진 죽음에서, 그는 하느님에게 사람에 대한 새롭고도 감동적인 계시를 이루었다.

제 3 장. 믿음직스러운 다윗 세배대

186:3.1 (2000.4) 빌라도 앞에서 심문의 결과에 따라 예수가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진 직후에, 주(主)를 따르던 자들을 해산시키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성전 경비병들이 겿세마네로 신속히 파견되었다. 그러나 따르던 무리들은 그들이 도착되기 훨씬 전에 이미 흩어졌다. 사도들은

지정된 은신처로 숨었다; 그리스인들은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집으로 숨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피신하였다. 다윗 세베대는 예수의 적들이 다시 올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기도와 경배를 위하여 주(主)가 종종 물러나 계셨던 산골짜기로 대여섯 개의 막사를 일찌감치 옮겼다. 그는 이곳에 숨어있으면서 메신저 봉사를 관리하는 본부 또는 조화-협동 장소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성전 경비병이 도착하였을 때 다윗은 가까스로 야영지를 빠져나갔다. 그들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자, 야영지를 불태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성전으로 돌아갔다. 산헤드린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 예수의 추종자들이 혼비백산하고 지리멸렬하여, 그의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로부터 예수를 구출하려고 시도하거나 소요를 일으킬 염려가 없어졌다고 안심하였다. 그들은 마침내 편히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으므로, 회의를 폐하고 각자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돌아갔다.

186:3.2 (2000.5)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준 직후에, 한 메신저가 다윗에게 알리기 위하여 급히 겿세마네로 떠났으며, 5분 후에는 전령들이 벳세다, 펠라, 필라델피아, 시돈, 세켄, 헤브론, 다마스쿠스,

알렉산드리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메신저들은 예수가 유대인 통치자들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서 로마인들에 의해 곧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186:3.3 (2001.1) 마침내 주(主)가 무덤에 안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까지, 비극적인 이 날 하루 종일, 다윗은 사도들과 그리스인들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모여 있는 예수의 육신의 가족들에게 거의 30분마다 메신저들을 보냈다. 예수가 매장되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메신저들이 떠나자, 다윗은 가까운 지역에 보내는 무리단들이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고, 다가오는 안식일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산시키면서, 자기가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와 함께 며칠 동안 숨어 있으려고 하는 니고데모의 집으로 일요일 아침에 모두 은밀하게 모이라고 지시하였다.

186:3.4 (2001.2) 독특한 성격을 소유한 다윗 세베대는 예수의 수제자들 중에서, 그가 죽을 것이고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한, 주(主)의 단언을 글자 그대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 문제로 바라보고 싶어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언젠가 이 예언을 들은 적이 있었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있었으므로, 예수가 죽음에서 일어나시는 경우에 소식을 즉시 전파할 수 있도록 일요일 이른 아침에 니고데모의 집으로 모이도록 자기 메신저들에게 지시하였던 것이다. 다윗은 예수를 따르던 자들 중에서 그가 그토록 속히 무덤에서 돌아오리라고 기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곧 발견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모든 자기 메신저 군대를 일요일 아침 일찍 동원시킨 것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며, 다만 금요일 오전에 멀리 있는 도시들과 신자들 무리에게 파견하였던 전령들에게만 알려주었다.

186:3.5 (2001.3) 그리하여 예수를 따르던 이 사람들은 온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으로 흩어졌으며, 그 날 밤에는 유월절에 참여하였고 그 다음 날에는 계속 숨어있었다.

제 4 장. 십자가형을 위한 준비

186:4.1 (2001.4)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통치자들의 아우성에 저항하는 것이 두려워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넘겨주었다는, 그러한 죄의식에서 빠져나갈

공리를 하면서,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은 후에, 그는 주(主)를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도록 지시하였으며, 그를 즉시 십자가형에 처해야 한다는 언질을 지휘관에게 주었다. 예수를 맡게 된 군인들은 다시 그를 집정관 관저 안마당으로 끌고 갔으며, 헤롯이 입혀준 예복을 벗기고 그가 원래 입고 있었던 옷을 입혔다. 이 군인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더 이상 육체적인 형벌을 가하지는 않았다. 예수는 이제 혼자서 이 로마 군인들과 함께 계시게 되었다. 그의 친구들은 모두 숨었다; 그의 적들은 모두 돌아갔으며; 요한 세베대도 더 이상 옆에 남아있지 않았다.

186:4.2 (2001.5) 빌라도가 예수를 군인들에게 넘겨준 것은 8시가 조금 지났을 때였으며 그들이 십자가형을 집행할 장소로 출발한 것은 9시 조금 전이었다. 30분이 조금 넘는 이 시간 동안 예수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초우주의 행정 업무가 실천적으로 정지되었다. 네바돈의 주요 통치자들과 가브리엘이 모두 이곳 유란시아에 모였고, 혹은 아니면 유란시아에서 사람의 아들에게 일어나는 일의 소식을 듣기 위하여 천사장들의 공간보고서에 바짝 쫓고 있었다.

186:4.3 (2001.6) 예수와 함께 군인들이 골고다를 향하여 출발할 때까지, 그들은 그의 비범한 침착성과 색다른 위엄에 의해서, 불평하지 않는 그의 침묵에 의해서 감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186:4.4 (2001.7)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 장소로 출발하는 일이 늦어지게 된 주요 이유는, 사형 선고를 받은 두 강도들을 함께 처형하기로 마지막 순간에 결정한 그 지휘관 때문이었다; 예수를 그 날 아침에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도 유월절 축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같이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로마 지휘관은 생각하였다.

186:4.5 (2002.1) 강도들은 준비를 갖춘 후 즉시 그 안마당으로 끌려왔으며, 그곳에서 예수를 쳐다보았고, 한 사람은 처음 보았지만, 다른 사람은 성전에서 그리고 여러 달 전에는 펠라 야영지에서 그가 말하는 것을 종종 들었었다.

제 5 장. 예수의 죽음과 유월절의 관계

186:5.1 (2002.2) 예수의 죽음과 유대인의 유월절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유대인의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그리고 성전에서 유월절 양들을 희생물로 제공하는 시간 무렵에.

예수가 육신으로서의 그의 일생을 마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쩌다 동시에 발생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사건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아들의 죽음이 유대인의 희생 제사 체제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예수가 유대인이기는 하였지만, 그는 사람의 아들로 온 세상을 위한 사람이었다. 주(主)의 임박한 십자가형에 이르기까지 이미 기술된 사건들만으로도, 이 때 그의 죽음이 순전히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사람이 획책한 사건임을 알기에 충분할 것이다.

186:5.2 (2002.3)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처형한 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아버지께서 유란시아에서의 인간의 사건 진행에 간섭하는 것을 거절한 것은 사실이지만, 파라다이스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이 죽도록 명하지도, 강요하지도, 요청하지도 않았다. 예수가 조만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몸을 버려야 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육신으로의 화신을, 두 강도들 사이에 있는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시더라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실 수도 있었다. 이것은 모두 사람이 한 것이었으며, 하느님이 한 것이 아니었다.

186:5.3 (2002.4) 주(主)가 세례를 받으실 때, 그는 이 땅에서 그리고 육신으로 반드시 가져야 될 체험, 일곱 번째의 마지막 증여를 완수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체험에 대한 기법을 이미 완성하였다. 바로 이 때 이 세상에서의 예수의 임무는 성취되었다. 그 후에 사신 그의 모든 일생, 그리고 심지어 그가 돌아가신 방법까지도, 이 세계와 다른 세계들에 존재하는 필사 창조체들의 행복과 발전을 위하여 역할을 담당한 순전히 개인적 사명활동이었다.

186:5.4 (2002.5) 필사자가 신앙에 의해서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영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은, 예수의 죽음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이 왕국 복음 전체가 주(主)의 죽음에 의해서 굉장히 밝게 빛나게 된 것은 정말로 사실이지만, 그의 일생에 의해서 더욱 그러하였던 것이다.

186:5.5 (2002.6)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말하고 행한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자녀 관계에 대한 그리고 사람들의 형제신분에 대한 교리들을 매우 아름답게 장식하였지만, 하느님과 사람들의 본질적인 관계들은, 하느님의 그의 창조체들에 대한 사랑의 우주적 사실들과 그리고 신성한 아들들의

타고난 자비 속에 내재되어 있다. 이 세계는 물론 다른 모든 우주들의 우주 전체 속에서 사람과 조물주 사이에 형성되는 이러한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관계들은 영원 속에서 존재되어 왔다; 그리고 하느님의 창조자 아들들의 이들 정기적인 증여는 그 어떤 면에서도 자신들의 지역우주에 반영되어질 무제한적 주권을 최종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지불하여야만 하는 어떤 대가의 일부분으로서 자신들이 창조한 지능존재들의 본성과 모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186:5.6 (2002.7)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예수가 사람과 하느님과의 협동 관계의 이 초월적인 공개 이후에 그가 하였던 것만큼, 그가 유란시아에서 예수의 삶과 죽음 이전에도 땅에 있는 필사 사람을 그 만큼 사랑하였다. 네바돈의 하느님이 유란시아에 사람으로 육신화한 이 엄청난 사건은 영원하고 무한하며 우주적인 아버지의 속성들을 증강시키지는 못하지만, 네바돈의 우주에 있는 다른 모든 관리-행정자들과 창조체들을 깨우치시고 풍성하게 하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미가엘의 이러한 증여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만, 다른 모든 천상의 지능존재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는 사람에게 하느님을 계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그리고 우주들의 우주에 있는 천상의 지능존재들에게 사람에게 대한 새로운 계시를 하였다.

186:5.7 (2003.1) 예수는 죄에 대한 희생물로서 죽으시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 종족의 태생적 도덕적 죄의식에 대하여 속죄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인류는 하느님 앞에 그러한 종족의 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죄의식은 순전히 개인적 죄와 지식, 아버지의 뜻과 그의 아들의 관리-행정에 대항하는 고의적인 반역의 문제이다.

186:5.8 (2003.2) 비록 구원 계획이 증여 계획의 잠정적인 특색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반역은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근본적인 증여 계획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186:5.9 (2003.3) 만일 예수가 무지한 필사자들의 무자비한 손에 의해 돌아가시지 않았다 해도,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을 위한 하느님의 구원은 아주 그렇게 효력이 있고 틀림없이 확실하였을 것이다. 만일 주(主)가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었고, 육신 속에서의 자신의

일생을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유란시아를 떠나왔더라도, 하느님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의 사실—하느님과 아들관계의 사실—은 결코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 필사자들은 하느님의 아들들이며, 너희 개인적 체험 속에서 그러한 진리를 사실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가 요구되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너희의 영으로-태어난 신앙이다.

제 187 편 십자가형

187:0.1 (2004.1) 두 강도들이 준비된 후에, 군인들은 백부장의 인솔 하에 십자가형이 벌어진 장소로 출발하였다. 12명의 군인들을 책임 맡은 그 백부장은 전 날 겟세마네에서 예수를 체포할 때 로마 군인들을 인솔하고 갔던 지도관이었다. 십자가에 못박히는 각 사람마다 4명의 군인들이 배정되는 것이 로마의 관례였다. 두 강도들은 십자가형에 처하기 위하여 끌고 가기 전에 절차대로 채찍질을 받았지만, 예수는 더 이상 육체적인 형벌은 받지 않았다; 지도관은 그가 유죄판결이 있기 전에 맞은 것이기는 하였었지만 그것으로 이미 충분히 채찍에 맞았다고 생각하였다.

187:0.2 (2004.2)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두 강도들은 바라바의 연관-동료들이었으며, 빌라도의 유월절 특사(特赦)로 풀려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들의 우두머리가 함께 사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는 바라바 대신 십자가형을 받은 것이었다.

187:0.3 (2004.3) 이제 예수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감수하는 것이었으며,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했다. 이러한 체험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말씀 하였었다: “아버지는 내가 내 생명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격려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다시 취할 것이다. 아무도 내 생명을 빼앗지 못하며—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버릴 권한도 있고, 그것을 취할 권한도 있다. 나는 그러한 계명을 내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였다.”

187:0.4 (2004.4) 군인들이 집정관 관저로부터 골고다를 향한 길로 예수를 끌고 간 것은 이 날 아침 9시 조금 전이었다.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동정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들을 따라오기는 하였지만, 200이 넘는 이 무리들 대부분은 그의 적들이거나 아니면 십자가형을 지켜봄으로써 짜릿한

충격을 즐기려고 하는 호기심 많은 한심한 자들이었다. 유대인 영도자들 중에서는 단지 몇 명만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예수를 보려고 갔다. 그들은 빌라도가 그를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준 것과,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알면서, 성전에서 회의를 하기에 바빴으며,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제 1 장. 골고다로 가는 길

187:1.1 (2004.5) 집정관 관저의 안마당을 떠나기에 앞서, 군인들은 가로 들보를 예수의 어깨에 메웠다. 사형수에게 가로 들보를 지게 하여 십자가 형장까지 운반해 가도록 하는 것은 하나의 관습이었다. 그러한 사형수는 십자가 전체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짧은 나무를 지게 하였다. 세 개의 십자가를 위한 보다 길고 똑바로 세우는 나무들은 이미 골고다로 운반되어 있었으며, 군인들과 죄수들이 도착될 무렵에는 벌써 땅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다.

187:1.2 (2004.6) 그 지휘관은 관습에 따라서 행렬을 인도하였으며, 죄인의 이름과 그들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죄의 성격을 솟으로 기록한 하얀 색의 작은 팻말을 가지고 있었다. 백부장은 두 강도들을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

밑에 “강도” 라는 한마디를 쓴 팻말들을 가지고 있었다. 죄수가 가로들 보에 못박히고 똑바로 세워진 나무 위의 그의 자리로 끌어 올려지고 난 후에는, 죄수의 머리 바로 위 십자가 꼭대기에 이 팻말을 못으로 박아 놓아, 그 사형수가 무슨 죄로 십자가형에 처해졌는지를 모든 보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다. 예수의 십자가에 붙이기 위하여 백부장이 가져온 패 위에는 빌라도가 직접 라틴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아람어로 기록하였으며, “나사렛 예수—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187:1.3 (2005.1) 빌라도가 이 패를 쓸 때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던 유대인 당국자들 몇 사람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러한 죄명이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한 기소 내용의 일부분임을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그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마음을 바꾸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내용이 적어도 “그가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였다.”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빌라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내용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간청하는 그들에게 오직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라고 대답하였다.

187:1.4 (2005.2) 일반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형수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먼 길을 통해 골고다로 가는 것이 관습이었으나, 그들은 이 날 그 성의 북쪽으로 나가는 다마스쿠스 문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로 갔고, 그들은 이 길을 따라서 곧 골고다에 도착하였으며, 그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공식적인 십자가 형장이었다. 골고다를 지나가면 부자들의 저택들이 있었으며, 길 반대편에는 많은 부유층 유대인들의 무덤들이 있었다.

187:1.5 (2005.3) 십자가형은 유대인의 처벌 방법이 아니었다.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페니키아인들로부터 이 처형 방법을 배웠다. 헤롯마저도, 그의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자주 쓰지 않았다. 로마인들은 결코 로마 시민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다; 오직 노예들과 피지배인들 만이 이러한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동안, 예수 십자가형의 꼭 40년 후에, 골고다 전역이 수천, 수 만개의 십자가로 뒤덮였으며, 매일같이, 그 위에서 유대 종족의

꽃이 사라졌다. 정말로, 이날 뿌려진 씨앗의 무서운 수확이 되었다.

187:1.6 (2005.4) 죽음의 행렬이 예루살렘의 좁은 길들을 지나가자, 좋은 위로와 연민의 예수 말씀을 들었고, 사랑의 사명활동을 하셨던 그의 일생을 아는 부드러운 마음의 많은 유대 여인들이, 그러한 야비한 죽음을 맞기 위해 끌려가시는 그를 보자 눈물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가 옆으로 지나갈 때, 이 여인들 대부분은 비통하였으며 애도하였다. 그들 중의 일부는 용감하게 그의 옆에서 따라가려고 하였지만, 주(主)는 그들에게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말씀하였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슬퍼하라. 내 일은 거의 끝났지만—나는 곧 내 아버지께로 간다.—예루살렘에 극심한 고난의 때가 곧 시작될 것이다. 보라, 그 날이 오면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이를 낳지 못한 자와 자녀에게 젖을 먹여보지 못한 자가 복되도다.” 라고 너희가 말할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날들에는 너희가 너의 재난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언덕 위의 돌이 너희에게 굴러 떨어지게 해달라고 너희가 기도해야 할 것이다.”

187:1.7 (2005.5)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에 대해 동정심을 현시한 것은 정말로 용감한 행동이었는데,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받으러 가는 자에게 친근감을 나타내는 자는 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군중들이 사형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놀리는 일은 허용되었지만,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표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자신의 친구들이 숨어있었던 이 어두운 시간에 동정심을 현시활동하는 것에 예수가 고맙게 여기기는 했어도, 그는 마음고운 이 여인들이 자신에게 감히 연민을 나타냄으로써 당국자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셨다. 이와 같은 때에도 예수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직 예루살렘과 온 유대 나라에 임할 극도로 비극적인 그 때를 생각하였다.

187:1.8 (2006.1)

주(主)가 십자가 형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힘들게 걸음을 옮기실 때, 그는 매우 지쳐있었다; 거의 탈진한 상태였다. 그는 엘리야 마가의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눈 이후로 음식과 물을 조금도 드시지 못하였다; 한 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하였다. 더욱이, 사나운 채찍질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선고를 받는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심문이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위에 그의 극단적인 정신적 고뇌와 날카로운 영적 긴장감
그리고 극심한 인간 고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187:1.9 (2006.2) 그 성 밖으로 나가는 문을 통과한 후 얼마 안
되어서, 예수는 가로 들보를 이겨내지 못하여
비틀거리셨고, 체력이 시시각각으로 떨어지셨으며,
무거운 짐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군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발로 찼으나, 그는 일어날 수 없었다. 이것을
본 지휘관은 예수가 이미 지탱하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알고, 군인들에게 그만두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키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지나가던 사람에게
명령하여, 예수의 어깨 위에 있는 가로 들보를 내려서
골고다까지 남아 있는 길을 강제로 지고 가도록 하였다.

187:1.10 (2006.3)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키레네로부터 먼 길을
여행하였다. 로마 지휘관이 예수의 가로 들보를 지고
가도록 명령하였을 때, 그는 성(城)안에 있는 성전
예배봉사에 참가하러가던 도중에, 다른 키레네인 들과
함께 바로 성 밖에서 쉬고 있었다. 시몬은 주(主)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시간 동안 내내 떠나지 않고 많은 그의

친구들과 그리고 적들과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부활 이후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그는 왕국 복음에 대한 훌륭한 신자가 되었으며, 고향에 돌아간 후에, 그는 그의 가족을 하늘왕국으로 인도하였다. 그의 두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푸스는 아프리카에서 그 새 복음을 가르치는 매우 효과적인 선생이 되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가, 그의 집을 그가 지었으며, 그리고 부상당했던 자기 아들과 한 때 친구로 지냈던 그 유대인 개인 교사와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187:1.11 (2006.4) 이 죽음의 행렬이 골고다에 도착한 것은 9시가 조금 지났을 때였으며, 로마 군인들은 두 강도들과 사람의 아들을 그들 각자의 십자가에 못박는 일에 직접 착수하였다.

제 2 장. 십자가형

187:2.1 (2006.5) 군인들은 먼저 주(主)의 팔을 가로 들보에 끈으로 묶었으며, 그 후에 그의 손을 나무에 못박았다. 그들은 이 가로 들보를 기둥 위로 끌어올리고, 똑바로 세워진 십자가 나무에 견고히 못을 박은 후에, 그의 발도 나무에 묶고, 두 발을 관통하도록 한 개의 긴 못을 사용하여, 그의 발을

나무에 못박았다. 똑바로 세워진 나무에는 큰 썰기 못이 적당한 높이에 박혀 있어서 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하였다. 그 십자가는 높지 않았으므로, 주(主)의 발끝에서 땅까지는 약 3피트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를 비웃는 모든 말들을 들으실 수 있었으며, 생각 없이 자기를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확실하게 보실 수 있었다. 또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시간을 끄는 고통과 이 시간들 동안 서서히 죽어 가는 예수가 말하는 것을 모두 들을 수 있었다.

187:2.2 (2007.1)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옷을 모두 벗기는 것이 관례였지만, 유대인들은 벗겨진 육체가 대중들 앞에 노출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당히 허리 부분만 감추는 옷을 입혔다. 따라서 예수의 옷이 벗겨진 후, 그가 십자기에 달려지기 전에 그는 그런 옷이 입혀졌다.

187:2.3 (2007.2) 십자가형은 오래 지속되는 잔인한 형벌로 자주 이용되었으며, 사형수가 며칠 동안 죽지 않는 경우도 있을 정도였다.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형을 상당히 반대하는

정서가 있었으며, 사형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형장에 늘 대리인을 보내는 유대인 부인회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목이 마르셨을 때 마취제가 섞인 이 포도주를 맛보시고, 마시기를 거절하였다. 주(主)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 의식(意識)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러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태 속에서도 죽음에 대처하고, 충만한 인간 체험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187:2.4 (2007.3) 예수가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에, 두 강도들은 이미 각자의 십자가에 달렸으며, 그 동안 내내 형 집행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침을 뱉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 가로대에 못 박을 때, 그는 오직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는 저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씀이었을 뿐이다. 것처럼 애정 어린 헌신에서의 생각들이, 사심-없이 봉사하는 모든 그의 일생의 주요한 동기가 아니었다면, 그가 자신의 형을 집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토록 자비롭고 그리고 사랑으로 중재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평생 동안의 관념, 동기, 갈망은 위기에 처했을 때 흰히 계시된다.

187:2.5 (2007.4) 주(主)가 십자가 위로 끌어올려진 후에, 그 지휘관은 그의 머리 위쪽에 명패를 못박았으며, 세 나라 말로 “나사렛 예수—유대인의 왕”이라 적혀 있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자기들을 모욕하는 것이라 믿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 분노하였다; 그는 그가 협박을 당했고 창피를 당했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이 작은 복수의 방법을 취했다. 그는 “예수, 반역자”라고 쓸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나사렛이라는 바로 그 이름을 얼마나 싫어하는 지를 잘 알았으므로,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려고 작정하였다. 사형 당한 이 갈릴리인이 “유대인의 왕”이라 불린 것을 그들이 봄으로서 그들의 급소가 찢림을 당하리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187:2.6 (2007.5) 많은 유대인 영도자들은 빌라도가 이러한 기록을 예수의 십자가 위에 붙여서 자기들을 얼마나 조롱하려고 하는지를 알고서, 서둘러 골고다로 달려갔지만,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못하였다. 명패를 제거하지 못하게 되자, 아무도 그 기록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영도자들은 군중들 속에 섞여서 비웃고 조소하도록 힘을 다하여 선동하였다.

187:2.7 (2007.6) 사도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롯 그리고 유다와 함께, 예수가 십자가 위의 그의 자리로 끌어올려진 직후, 그리고 그 지휘관이 명패를 주(主)의 머리 위에 못박고 있을 바로 그 때, 현장에 도착하였다.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를 현장에 모시고 온 후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자기 어머니와 그녀의 친구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계속 그곳에 있지 못하였지만, 열 한 명의 사도들 중에서 십자가형을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187:2.8 (2007.7) 예수는 요한과 그의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있는 그의 어머니를 보면서, 그는 미소를 지었으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한편, 주(主)의 십자가형에 선임되었던 네 명의 군인들은, 관례대로, 그의 옷들을 서로 나누었다, 한 사람은 신발을, 한 사람은 머리 두건을, 한 사람은 허리띠를,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외투를 가졌다. 이제 네 조각으로 잘라야 될 옷옷, 혹은 무릎 근처까지 닿는

이음매가 없는 제복, 이 남았다, 그러나 군인들은 그것이 흔히 볼 수 있는 옷이 아닌 것을 보자, 그들은 그것을 위하여 제비뽑기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수는 그들이 그의 옷들을 나누고 있는 동안 그들을 내려다보았으며, 그리고 생각 없는 군중은 그를 조롱했다.

187:2.9 (2008.1) 로마 군인들이 주(主)의 옷을 갖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그렇지 않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 의복들을 가졌다면, 유물을 미신적으로 경배하는 유혹에 빠졌을 것이다. 주(主)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이 땅에서의 자신의 일생과 관계되는 어떤 물질도 소유하지 못하게 되기를 바라셨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헌납되어지는 높은 영적 이상에 바쳐진 인간 일생에 대한 기억만을 인류에게 남겨두고자 하였다.

제 3 장. 십자가형을 본 사람들

187:3.1 (2008.2) 이 금요일 아침 9시 30분경에. 예수가 십자가(十字架)에 매달렸다. 11시 이전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 애처로운 광경을 지켜보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이러한 소름끼치는 시간 내내, 우주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리들은 창조자께서

그 자신이 창조체의 죽음으로 죽어가고 있는, 심지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엄청난 현상을 지켜보면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187:3.2 (2008.3) 괴로운 시련동안 때때로 십자가 옆에 마리아, 롯, 유다, 요한, 살로메(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이고 클레오파스의 아내인 마리아를 포함한 한 무리의 열렬한 여자 신자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전에 세포리에 있었던 레베카가 서 있었다.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다른 친구들은 그의 위대한 인내심과 끈기함을 보면서 그들의 평정을 유지 하였으며 그리고 그의 극심한 고난을 지켜보았다.

187:3.3 (2008.4)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그를 폭언을 퍼부으며 말했다: "성전을 허물고 그것을 삼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한 너다, 너 자신이나 구해봐라. 만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유대인 통치자들은 그를 조롱하며 말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했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은 구할 수 없다." 다른 이들이 말했다, " 만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더욱 그를 조롱하면서, 말했다: “그는 하느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으로 믿었다. 그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주장하였는데—이제 그를 보아라.— 두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두 강도들까지도 역시 그에게 욕을 퍼붓고, 그를 꾸짖었다.

187:3.4 (2008.5) 그들의 조롱에 예수가 대꾸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가운데, 그리고 특별한 준비일의 정오 시간이 가까워졌으므로, 11시 30분경이 되자 희롱하고 야유하던 군중들 대부분이 돌아갔으며; 50명 미만의 사람들이 현장에 남아있었다. 군인들은 오랫동안 죽는 과정을 지켜볼 준비를 하고, 값싼 신 포도주를 마시면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였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를 비웃듯이 건배하면서 “만세 그리고 유대인의 왕의 행운을 위하여!”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대한 주(主)의 관대함에 놀랐다.

187:3.5 (2008.6)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보신 예수는 그들을 내려다보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였다. 경비병들의 지휘관은 예수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한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진 병에서 약간의 포도주를 따라서 스펀지로 된 해면에 흠뻑 적신 후에, 창끝에 달아 올려서 예수가 바짝 마른 입술을 적실 수 있도록 하였다.

187:3.6 (2008.7) 예수는 자신의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하지 않고 사시기로 작정하였었으며,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기로 선택하였다. 그는 사람으로서 사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한 사람으로 죽으려고 하였다.

제 4 장. 십자가 위의 도둑

187:4.1 (2008.8) 강도들 중 한 명이 예수를 조롱하면서, 말했다. “만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왜 너 자신과 우리를 구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가 예수를 비난하자, 여러 번 주(主)의 가르침을 들었던 다른 강도가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하느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행동에 대해서 마땅히 고난을 받지만 이 사람은 부당하게 당하고 있음을 너는 모르겠느냐?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와 우리 혼에 대한 구원을 구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강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신 예수는 그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셨다. 예수가 자기에게

고개를 돌리신 것을 본 그 죄수는 용기를 내어, 꺼질 듯한 신앙의 불길에 부채질을 하면서, “주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오늘 네게 말하겠는데, 네가 장차 파라다이스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187:4.2 (2009.1) 주(主)는 육신이 죽어 가는 고통이 한창인 중에서도, 믿음을 가진 강도의 신앙 고백에 귀를 기울였다. 이 강도가 구원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그는 해방을 찾았다.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는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 번 강요를 받은 바 있었지만, 의식이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에 와서야 주(主)의 가르침을 향하여 전심으로 돌아섰던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으시는 태도를 보았을 때, 이 강도는 사람의 아들이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었다는 신념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

187:4.3 (2009.2) 그 강도가 예수로 인하여 전향하고 왕국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에피소드가 일어나는 동안, 사도 요한은 그곳에 있지 않았으며, 자기 어머니와 그녀의 친구들을 십자가형의 현장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도시로

들어갔었다. 누가는 개종한 그 로마 경비원 지휘관으로부터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

187:4.4 (2009.3)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이 발생한지 65년 이 지난 후에 그가 사건을 기억하는 대로 십자가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다른 기록들은, 당시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 예수를 믿었고, 그로서 지상에서 하늘의 왕국의 충만한 동료관계가 되었던 로마 백부장의 설명에 근거를 두었다.

187:4.5 (2009.4) 참회한 강도인 이 젊은이는, 강도 행위야말로 정치적인 압제와 사회적인 불공정에 대항하여 애국적으로 항거하는 효력적인 수단이라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폭력과 그릇된 행동의 일생으로 인도 되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가르침은, 모험심에 대한 충동이 더하여져, 많은 선의의 젊은이들을 무모한 강도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 이 젊은이도 바라바를 하나의 영웅으로 추앙하였다. 그는 이제 자신이 오류를 범하였음을 알았다. 그의 옆 십자가 위에서 그는 실제로 위대한 사람, 참된 영웅을 보았다. 그의 열성에 불을 질렀고 도덕적 자아-존중에 대한 그의 최고의 관념을

고무하였으며 용기와 성품과 용감성에 대한 그의 모든 이상들을 되살렸던 영웅이 여기 있었다. 예수를 바라보는 동안, 그의 가슴속에는 사랑과 충성심 그리고 참된 위대성에 대한 압도적인 감정이 솟아났다.

187:4.6 (2009.5) 그리고 만약에 조롱하던 군중들 중에서 다른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혼속에 신앙의 탄생을 체험하고 예수의 자비에 호소하였다면, 그는 믿음을 가진 강도에게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배려를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었을 것이다.

187:4.7 (2009.6) 회개한 강도가 그들이 언젠가 파라다이스에서 서로 만날 것이라는 주(主)의 약속을 들은 직후에, 요한은 그의 어머니와 거의 12명이나 되는 여자 신자들의 무리를 데리고 도시로부터 돌아왔다. 요한은, 그녀를 부축하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곁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의 아들 유다는 다른 편에 서 있었다. 때는 정오였고 예수가 이 광경을 내려다보시면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요한에게는 “내 아들아, 네 어머니를 보아라!” 그리고 나서 그는 둘 모두에게 말씀하였다, “나는 너희가 이 자리를 떠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요한과 유다는 마리아를 골고다에서 모시고 내려갔다.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던 곳으로 안내한 후에 서둘러서 십자가형의 현장으로 돌아왔다. 유월절이 지난 후에 마리아는 벳세다로 돌아갔으며, 그녀는 그곳에 있는 요한의 집에서 그녀의 남은 생애를 살았다. 마리아는 예수가 돌아가신 후 채 1년을 살지 못하였다.

187:4.8 (2010.1) 마리아가 떠난 후에, 다른 여인들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물러나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절명할 때까지 그곳에 남아있었으며, 주(主)의 육신이 장례를 위하여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제 5 장.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시간

187:5.1 (2010.2)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에는 계절적으로 조금 이른 때이기는 하였지만, 12시가 조금 지나자 공기 속의 고운 모래로 인하여 하늘이 어두워졌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것이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뜨거운 바람의 모래 폭풍들 중 하나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1시 이전에 하늘은 무척 어두워졌으며 해는 가리어졌다, 그리고 남아있던 군중들도 서둘러 도시로

돌아갔다. 이 시간 조금 후에 주(主)가 숨을 거두셨을 때, 단지 13명 의 로마 군인들과 15명 정도의 신자들 대략 30명 미만의 사람들만 남아 있었다. 이 신자들은 주(主)가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그곳에 도착한 예수의 형제인 유다와 요한 세베대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인들이었다.

187:5.2 (2010.3) 1시 조금 지나서, 강한 모래 폭풍으로 점점 더 어두워지는 가운데, 예수는 점차 인간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하였다. 자비와 용서 그리고 훈계에 대한 그의 마지막 말씀은 이미 하였다. 그의 마지막 소원—자신의 어머니를 돌보는 것에 관한—은 이미 표명하였다. 죽음이 임박하는 이 시간 동안 예수의 인간 마음은 히브리 성서 구절들, 특별히 시편에서 여러 구절들을 반복하여 떠올리셨다. 예수는 마지막 의식 속에서 시편의 어떤 부분을 마음속에 되풀이하였는데,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의식은 마음속으로 이제 시편 20편, 21편 그리고 22편이라고 알려진 시편의 구절의 반복에 관심이 있었다. 입술이 가끔 움직이기는 하였지만, 그가 가슴으로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이 구절들이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로 하기에는 그는 너무 쇠약했다. 단지 몇 번만, 서있는 사람들이 “기름 부은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압니다," "당신의 손이 나의 모든 적들을 찾아 낼 것
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발언을 들었다.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다는 것에 대하여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지금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육신의 일생을 마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느끼시지 않았다; 다만
사라져 가는 의식 속에서 많은 성서 구절들을 읊조릴
뿐이었고, 그것들 중에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시작하는 시편 22편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옆에 서있는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충분히 분명하게 말하여진 세
구절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

187:5.3 (2010.4) 필사자 예수가 친구들에게 한 마지막 요청은 1시
반쯤, 두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고 그가 말하고, 그리고
같은 경비 지휘관이 당시에 흔히 식초라고 불린 신
포도주에 적신 동일(同一)한 해면으로 그의 입술을 다시
적셔준 때였다.

187:5.4 (2010.5)

모래 폭풍이 심해지고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군인들과 적은 무리의 신자들이 여전히 옆에서 있었다. 군인들은 날카로운 모래를 피하려고 십자가 곁에서 서로 몸을 기대고 웅크리고 있었다. 요한의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지붕처럼 되어 있는 바위 밑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주(主)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그의 십자가 밑에는 요한 세베대, 주(主)의 형제 유다와 그의 자매 롯,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한때 세포리에 있었던 레베카가 있었다.

187:5.5 (2011.1)

예수가 큰 음성으로 “이제 완결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손 안에 나의 영을 맡깁니다.”라고 외친 때는 3시 직전이였다. 이렇게 말스한 후에 고개를 떨어뜨리시고 생명의 몸부림을 그만두셨다. 예수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본 로마 백부장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이는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진실로 그는, 하느님의 아들이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

187:5.6 (2011.2)

예수는 왕답게—사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장엄하게 돌아가셨다. 그는 자신이 왕임을 거침없이

인정하였고 그리고 비극의 날 내내 상황에서의 주(主)로 계셨다. 그는 그가 선택한 사도들의 안전을 도모한 후에, 기꺼이 치욕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였다. 그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베드로의 폭력을 현명하게 제지하였고 요한에게는 그의 필사 실존의 끝까지 곁에 있도록 하였다. 그는 살의에 찬 산헤드린에게 자신의 참된 본성을 계시하셨으며 빌라도에게는 자신의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주권 권한의 근원을 상기시키셨다. 그는 자신의 가로 들보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출발하였으며, 필사자로 획득한 자신의 영을 파라다이스 아버지께 위탁함으로써 자신의 사랑 넘치는 증여를 완결하셨다. 그러한 일생 이후에—그리고 그러한 죽음에 즈음하여— 주(主)는 정말로 “이제 완결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187:5.7 (2011.3) 이 날은 유월절과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시체들을 골고다에 남겨두기를 원치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들을 보내어, 그리하여 그들을 그들의 십자가에서 끌어내려 죄수들을 묻는 구덩이로 해가 지기 전에 던져 넣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갔다. 이 요청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와 두

강도를 다리를 꺾고 그리고 처치하도록 지체 없이 세 군인을 보냈다.

187:5.8 (2011.4) 이 군인들이 골고다에 도착하여, 두 강도에게는 그렇게 하였지만, 예수는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 아무튼,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인들 중 하나가 그의 창으로그의원쪽 옆구리를 찔렀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심지어는 이틀 또는 삼일 동안 산 채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예수의 주체할 수 없는 감정적 고통과 극심한 영적 비통은 5시간 반이 약간 안 되는 동안에 육신으로서 그의 필사자 생명을 끝나게 했다,

제 6 장. 십자가형 이후

187:6.1 (2011.5) 모래 폭풍의 어둠 속에서, 3시 반경에, 다윗 세베대는 주(主)의 죽음을 알리는 마지막 메신저를 보냈다. 그는 그의 전령들 중 마지막을 예수의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이 머물고 있으리라고 생각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보냈다.

187:6.2 (2011.6) 주(主)가 돌아가신 후에, 요한은 여인들을, 유다의 책임아래, 안식일 동안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엘리야

마가의 집으로 보냈다. 요한 자신은 이 때 로마 백부장과 친해져서, 빌라도로부터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도록 허락한다는 명령을 받은 요셉과 니고데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골고다에 남아 있었다.

187:6.3 (2011.7) 이렇게 광대한 한 우주의 비극(悲劇)과 슬픔의 날이 끝났다. 그 우주의 수많은 지능존재들은 자신들의 사랑하는 주권자가, 인간으로 육신화한 모습에서 십자가형을 받는 소스라칠 광경에서 몸서리를 쳤다. 이렇게 나타난 필사자의 무정(無情)함과 인간의 타락에 경악했다.

제 188 편 무덤에서의 시간

188:0.1 (2012.1)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때로부터 부활까지, 예수의 시신이 요셉의 무덤에 있었던 하루 반나절 동안은, 미가엘이 이 땅에서 보내신 시간들 중에서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을 매장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그의 부활과 관계된 사건들을 여기에 기록할 수도 있지만,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 아침 3시까지, 약 36시간의 이 신(新)시대 동안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었는지 그 확실한 현상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 주(主)의 일생 중에서 이 기간은 그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내려지기 직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돌아가신 후로 약 한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두 강도를 죽이는 일로 지체되지 않았다면 그의 시신이 보다 빨리 내려졌을 것이다.

188:0.2 (2012.2) 유대인 통치자들은 예수의 시신을 그 성의 남쪽에 있는 게헤나 라는 넓은 구덩이에 던져 넣을 계획이었다; 십자가에서 처형된 자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주(主)의 시신은 맹수들에게 뜯겼을 것이다.

188:0.3 (2012.3) 한편,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자기들이 적절하게 장사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의 친구들이 그 시체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로마 당국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요셉은 많은 돈을 지참하고 빌라도에게 갔으며, 예수의 시신을 사유(私有) 매장지로 옮길 수 있는 허락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빌라도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가 그

요청을 들었을 때, 그는 요셉으로 하여금 골고다에 가서 주(主)의 시신을 즉시 그에게 소유하도록 한다는 명령서에 바로 서명을 하였다. 그 동안, 모래 폭풍이 현저히 감소되었고, 강도들의 시체와 함께 예수의 시신을 넓은 공공 매장지 구덩이에 던져 넣기 위하여, 산헤드린에서 보낸 여러 명의 유대인들이 골고다로 출발하였다.

제 1 장. 예수의 매장

^{188:1.1 (2012.4)} 요셉과 니고데모가 골고다에 도착하였을 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고 있고, 죄수를 매장하는 구덩이로 그의 시신을 옮겨가는 일을 예수의 추종자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산헤드린에서 보낸 사람들이 옆에 서서 감시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였다. 요셉이 주(主)의 시신에 대한 빌라도의 명령서를 백부장에게 제시하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소란을 피우며 시끄럽게 떠들었다. 그들이 광란에 가까울 정도로 맹렬하게 그 시신을 가져가려고 하면서 행동에 옮기려고 하자, 백부장은 네 명의 군인에게 옆에 서도록 명령하였으며, 그들은 칼을 빼들고 땅에 눕혀져 있는 주(主)의 몸 좌우에 버티고 섰다. 백부장은 다른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화난

유대인들을 뒤로 물리치는 동안, 강도들의 시체를 치우도록 하였다. 질서가 회복된 후에, 백부장은 빌라도가 보낸 명령서를 유대인들에게 읽어주고, 옆으로 가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시신은 당신의 소유이니 소견대로 하시오.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군인들과 함께 지켜주겠소."

188:1.2 (2013.1)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은 유대인의 무덤에 묻힐 수 없었다; 그러한 절차를 금지하는 엄격한 법이 있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법을 알고 있었으며, 골고다로 가는 길에서 그들은 요셉이 새로 만든 가족묘에 예수를 묻기로 결정했었으며, 그 묘는 사마리아로 가는 길 건너편, 골고다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고 단단한 바위를 파내서 만든 것이었다. 이 무덤에는 아무도 묻힌 적이 없었으며, 그들은 주(主)를 그곳에 눕히는 것이 적당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요셉은 예수가 죽음에서 일어나실 것을 실제로 믿었지만, 니고데모는 거의 믿지 않았다. 전에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이 사람들은 그들이 그 공회를 그만두기 전에도 산헤드린 회원 동료들 중에는 오래 전부터 그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예수에 대한 자기들의 신앙을 어느 정도 비밀리에 지키고 있었다.

이 날 이후로 그들은 온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가장 과감하게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다.

188:1.3 (2013.2) 4시 30분경에 나사렛 예수의 장례 행렬이 길 건너편에 있는 요셉의 무덤을 향하여 골고다를 출발하였다. 그 시신은 네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세마포로 싸으며, 갈릴리에서 온 신실한 여인 감시자들이 뒤를 따라갔다. 예수의 시신을 운반한 사람들은: 요셉, 니고데모, 요한, 그리고 로마 백부장이었다.

188:1.4 (2013.3) 그들은 시신을 무덤 안으로 운반하였으며, 사방 10피트 정도 되는 묘실 안에서 급히 장사지낼 준비를 하였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시신을 땅에 묻지 않았다; 그들은 실재 향유로 방부 처리하였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많은 양의 몰약과 향료를 가져왔으며, 이 액체들을 적신 헝겊으로 시신을 싸다. 향유로 방부 처리하는 일이 끝나자, 그들은 얼굴을 수건으로 동이고, 몸을 세마포로 감았으며 무덤 안에 있는 선반 위에 존경을 담아서 눕혀 놓았다.

188:1.5 (2013.4) 시신을 무덤에 안치시킨 후에, 백부장은 군인들에게 신호를 보내어 무덤 입구에 돌로 된 문을 굴리는 일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그러고 나서 군인들은

강도들의 시체를 게헨나로 옮기기 위하여 출발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 축제를
지키기 위해 슬퍼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188:1.6 (2013.5) 이 날은 준비일 이었고 안식일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의 장사는 매우 급하게 서둘러 치러졌다.
남자들은 서둘러 도시로 돌아갔지만, 여인들은 아주
깜깜할 때까지도 무덤 곁에 있었다.

188:1.7 (2013.6)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여인들은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主)가 어디에 안치되는
지를 보기 위하여 아주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것은 그러한 시간에 여인들이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여인들은
예수를 장사지낼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자기들이 요셉의 집에 돌아가서,
안식일을 지내고 향료와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죽음의
휴식을 위하여 예수의 시신을 준비하도록 일요일 아침에
정확히 돌아오도록 그들끼리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무덤에 머물러 있었던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클로파의 아내 마리아, 예수와 또 다른 이모 마르다, 그리고 세포리의 레베카였다.

188:1.8 (2013.7)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다윗 세베대와 아리마대의 요셉을 제외하고는, 셋째 날에 무덤에서 살아나실 것을 실제로 믿거나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제 2 장. 무덤을 지킴

188:2.1 (2014.1) 세 번째 날에 무덤에서 일어나리라는 그의 약속에 대하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관심하였더라도, 그의 적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사제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그가 죽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보고를 받아들였었다는 것을 생각해 내었다.

188:2.2 (2014.2) 그 금요일 밤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자정 무렵이 되어서, 유대인 영도자들이 가야바의 집에 모였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세 번째 날에 죽음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주(主)의 단언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의논하였다. 이 회의는 산헤드린 회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예수의 친구들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그의 무덤 앞에 로마 경비병을 세워 달라는 산헤드린의 공식 요청을 가지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빌라도에게 가기로 약속함으로써 끝이

났다. 이 위원회의 대변인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각하, 나사렛 예수라 하는 그 사기꾼이 아직 살아있을 때에, ‘삼일 후에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그 세 번째 날이 지날 때까지 그의 추종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는 명령을 하달해 주실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제자들이 와서 야밤에 그를 훔쳐간 후에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는 것을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두는 오류를 범한다면, 그것은 그를 살려둔 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사태를 일으킬 것입니다.

188:2.3 (2014.3) 산헤드린 회원들의 이러한 요청을 들은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였다: “열 명의 군인들을 경비원으로 내어주겠다. 너희가 가서 무덤을 지켜라.” 그들은 성전으로 돌아가서, 안식일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경비병을 열 명 더 보강하여, 열 명의 유대인 경비병들과 열 명의 로마 군인들과 함께 요셉의 무덤으로 행진하였으며, 무덤 앞을 지키게 하였다. 이 사람들은 다른 돌을 굴러다가 무덤 앞을 막았고, 그들의 허락 없이는 접근을 못하도록 돌 주위에 빌라도의 이름으로

봉인하였다. 그리고 이 20 명의 남자들은 부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지켰으며,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가져다주었다.

제 3 장. 안식일을 지키는 동안

188:3.1 (2014.4) 안식일 기간 동안 제자들과 사도들은 여전히 숨어 있었으며,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 때 예루살렘에는 거의 1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으며, 로마제국의 각 지방과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몰려 왔다. 이 날은 유월절 주간이 시작되는 때였으며, 모든 순례자들은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고향에 전하기 위하여 성(城)에 남아 있으려고 하였다.

188:3.2 (2014.5) 토요일 밤늦게, 요한 마가는 열 한 사도들을 비밀리에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오도록 불렀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이틀 전에 자신들의 주(主)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바로 그 동일한 다락방으로 자정이 지나기 직전에 모두 모였다.

188:3.3 (2014.6)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같은 날 토요일 저녁 해가 지기 직전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롯과 유다를

데리고 베다니로 돌아갔다. 다윗 세베대는 니고데모의 집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는 자기 메신저들에게 일요일 아침 그곳에 모두 모이도록 이미 지시해 두었었다. 예수의 시신에 약품을 더 바르기 위하여 향료를 준비한 갈릴리의 여인들은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

188:3.4 (2014.7) 요셉의 새 무덤에서 그가 영면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하루 반나절 동안 나사렛 예수께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다른 필사자들이 처하는 것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그가 “아버지여, 내 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의 생각 조절자가 오래 전에 개인성구현되었고 예수의 필사 존재로부터 분리되어 실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다. 주(主)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는 십자가 위에서의 그의 물리적 죽음으로는 그 어떤 의미에서도 결코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 예수가 잠시 동안 아버지의 손에 의탁한 것은 인간 체험의 기록을 맨션세계로 옮겨지도록 대비하기 위하여 인간 마음을 영화(靈化)시켰던 조절자의 초기

활동에 대한 영 부분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예수의 체험 속에도 구체들에서 신앙이 자라 가는 필사자들의 영 본성, 즉 혼과 비슷한 어떤 영적 실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우리의 견해일 뿐이다—예수가 아버지께 무엇을 위탁하였는지 우리는 실제로 모른다.

188:3.5 (2015.1) 주(主)의 육체적인 형체가 일요일 아침 3시경까지 요셉의 무덤 안에서 영면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36 시간의 기간 동안 예수의 개인성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신할 수 없다. 우리는 가끔 다음과 같이 감히 우리들끼리 이것을 설명해 보려고 하였다:

188:3.6 (2015.2) 1. 미가엘의 창조자 의식은 육체적 육신화와 연관된 필사자 마음으로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최대한으로 해방되었음이 틀림없다.

188:3.7 (2015.3) 2. 우리가 아는 예수의 전(前) 생각 조절자는 이 기간 동안에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연관된 하늘 무리들을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3. 육신으로의 그의 일생동안에 이루어졌던, 나사렛 사람으로서의 습득된 영 정체성, 처음에 그의 생각 조절자의 직접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결코-중지되지 않은 아버지 뜻에 대한 선택으로 달성된 것처럼, 육체적 필요성과 이상적인 필사자 실존의 영적 요구사항들 사이에서 자기 스스로의 완전한 조절로 이루어졌던 영 정체성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보호관리에 위탁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영 실체가 부활한 개인성의 일부분으로 돌아왔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돌아왔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주에는 예수의 혼-정체성이, 외부 공간에 있는 미조직(未組職) 영역들에 아직 창조되지 않은 우주들과 관련하여 그들의 밝혀지지 않은 운명 속에 있는, 네바돈 최종의 무리단의 지도를 위하여 나중에 배정되도록 지금 “아버지의 품” 안에서 쉬고 있다고 여기는 존재들이 있다.

4. 우리는 예수의 인간 혹은 필사자 의식(意識)이 이 36 시간 동안 잠들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인간 예수가 이 기간 동안 우주에 일어난 일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이유를 갖고 있다. 필사자

의식에 그 어떤 시간의 흐름도 없었다; 생명의 부활은 죽음의 잠을 자는 동시에 즉시 뒤따랐다.

188:3.10 (2015.6) 이상이 예수가 무덤에 계시는 동안의 지위에 관하여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전부이다. 우리가 암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관련 사실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도저히 그것들의 해석을 떠맡을 능력이 없다.

188:3.11 (2015.7) 사타니아에 있는 첫 맨션세계 부활실의 거대한 뜰 안에서, "미가엘 기념관"이라고 알려진 장엄한 물질적-모론시아적 구조물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가브리엘이 인봉해 놓았다. 이 기념관은 미가엘이 이 세상을 떠나신 직후에 만들어졌으며, 그곳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유란시아에서 나사렛 예수의 필사자 과정을 기념하여."

188:3.12 (2016.1) 그곳에는 이 기간 동안 구원자별의 최고 의회가 가브리엘의 주재 아래 유란시아에서 백여 회에 달하는 집행 회의를 열었음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있다. 또한 그곳에는 유버사의 옛적으로 늘 계신 이가 이 기간 동안 네바돈의 우주 상태에 관하여 미가엘과 교통을 나눈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들도 있다.

188:3.13 (2016.2) 주(主)의 시신이 무덤 속에 누워 있는 동안 구원자별에 있는 임마누엘과 미가엘 사이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메시지가 교환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188:3.14 (2016.3)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서 쉬고 있는 동안 예루셈에 있는 행성영주들의 체계 협의회에서 칼리가스티아의 자리에 어떤 개인성이 앉아 있었다는 것을 믿을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다.

188:3.15 (2016.4) 에덴시아의 기록들에 의하면, 놀라시아텍의 별자리 아버지가 유란시아에 있었으며, 무덤에 있던 이 기간 동안 그가 미가엘로부터 지침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188:3.16 (2016.5) 그리고 분명한 육체적 죽음의 이 시간동안 예수의 개인성의 모든 것이 잠들어 무의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많은 다른 증거들이 있다.

제 4 장. 십자가 죽음의 의미

188:4.1 (2016.6) 비록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이 죽음을 죽으신 것은 필사 사람의 인종적인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시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에게 다가가는 일종의 효력적인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비록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면서, 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물로 바친 것은 아니었지만; 속죄와 화해에 대한 이 관념들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의 이 죽음에는 중요한 의의(意義)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거주되고 있는 이웃 행성들에게 유란시아가 “십자가의 세계”라고 알려진 것은 사실이다.

188:4.2 (2016.7) 예수는 유란시아에서 육신으로 한껏 필사자 일생을 사시기를 원하였다. 일반적으로 죽음은 일생의 한 부분이다. 죽음은 필사자 드라마의 마지막 장(場)이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의미를 거짓되게 해석하는 미신적인 실수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너희의 선의의 노력들 속에서, 주(主)의 죽음에 대하여 진정한 중요성과 참된 의의(意義)를 깨닫지 못하는 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188:4.3 (2016.8) 필사 사람은 최고 사기꾼들의 소유물이 결코 아니었다. 예수는 변절한 통치자들과 구체들의 타락한 영주들의 손아귀로부터 몸값을 지불하고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조상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필사자 혼을 파멸시킬 만큼 우둔한 불공정성을 마음에 품으신 적이 결코 없으시다. 뿐만 아니라, 인류가 하느님께 갚아야 될 빚을 지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하나의 희생물로서 주(主)가 죽으신 것도 아니었다.

188:4.4 (2016.9) 예수가 이 땅에 사셨던 이전에는, 너희가 아마도 그러한 하느님을 믿었어도 정당화되었을 것이나, 그러나 이제 주(主)가 너희 동료 필사자들 속에서 사시고 죽으신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창조자 하느님의 위엄과 공의를 가르쳤지만 ;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묘사하였다.

188:4.5 (2016.10) 동물적 본성—악을 행하려는 경향—은 유전적인 것이겠지만, 죄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죄는 의식적인 행동이며, 의지를 가진 창조체

개별존재가 아버지의 뜻과 아들들의 법에 대항하여 반역을 도모하는 것이다

188:4.6 (2017.1) 예수는 전체 우주를 위하여 사셨고 돌아가셨으며, 오직 이 세상 하나에 있는 인류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가 유란시아에서 사시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영역들의 필사자들은 구원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세상에 증여되심으로써 그 구원의 길이 엄청나게 밝혀진 것이 사실이다; 그의 죽음은 필사자가 육신적인 죽음 이후에 생존한다는 확실성을 언제까지나 똑똑히 밝히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188:4.7 (2017.2) 예수를 희생자, 대속자,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적절하지 못하지만, 그를 구원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그는 구원(살아남음)의 길을 언제까지나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들었다; 그는 네바돈 우주들 안에 있는 모든 세계들의 모든 필사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더욱 낮게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188:4.8 (2017.3) 너희가 하느님의 관념을, 나사렛 예수가 항상 가르쳤던 유일한 개념인, 진실하고 사랑 넘치는 아버지로서 일단 파악이 되었다면, 너희가 하느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원시적 생각을 당장에,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아주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원시적 관념은, 하느님이 그릇된 일을 행하는 자기 백성들을 늘 따져보고 탐지하고, 그들이 합당하게 벌 받는 것을 보려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의 하느님 자신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존재가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고통 받기를 자원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대리로 죽는 것을 중요한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한 화를 내는 주권자, 엄격하고 만능이신 통치자로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은 신성한 본성 안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못하지 않다.

188:4.9 (2017.4) 속죄와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이 모든 개념은 이기주의에 뿌리를 두고 바탕을 두는 것이다. 자기 친구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영적 신자들의 형제신분에 대한 최고의 개념이라고 예수는 가르치셨다. 구원은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여겨져야만 하는 것이다. 신자의 주요 관심사는 개인적 구원을 바라는 이기적인 욕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오히려 예수가 필사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신 것처럼,

자신의 동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리하여, 섬기고자하는 사심-없는 욕구이어야만 한다.

188:4.10 (2017.5) 또한 참된 신자들은 죄에 대한 앞으로의 형벌을 크게 염려하지도 않는다. 실제 신자는 오직 현재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관심을 쏟을 뿐이다. 현명한 아버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벌을 주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랑에서 그리고 바로잡아주기 위하여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화가 나서 벌주지 않으며, 응징하기 위하여 혼내지도 않는다.

188:4.11 (2017.6) 만약 하느님께서 공의가 최고를 지배하는 우주의 완고하고 율법적인 군주였다 하더라도, 그는 결백한 수난자를 죄 있는 범죄자와 바꾸는 어리석은 계획에 분명히 만족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188:4.12 (2017.7) 예수의 죽음에 있어서 위대한 점은, 인간 체험의 질을 높이고 구원의 길을 확대한 것과 관련하여, 그의 죽음 그 자체의 사실보다는 오히려 그가 죽음을 맞으시면서 보여주신 당당한 태도와 비길 데 없는 영이다.

188:4.13 (2017.8)

속죄의 배상이라는 이 모든 관념이 구원을 비현실의 수준에 가져다 놓았다; 그러한 개념은 순전히 철학적이다. 인간 구원은 실제이다; 그것은 창조체의 신앙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개별적 인간 체험 속에 합병됨으로써 파악될 두 가지 실체에 기초한다;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의 사실과 그것에 상관되는 진실인 사람의 형제신분이다. 아무튼, 너희가 “너희에게 빛진 자를 네가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 빛도 용서받는다”는 것은 진실이다.

제 5 장. 십자가의 교훈

188:5.1 (2017.9)

참 목자는 자기 양떼 중에서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라도 최극 헌신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가 충만하게 묘사한다. 그것은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모든 관계들을 가족의 기반 위에 언제까지나 놓는다. 하느님은 아버지이시며; 사람은 그의 아들이다. 악을 행하는 백성에게 고난을 주고 벌을 가함으로써 만족을 얻으려는 왕의 공의가 아니라—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창조자와 창조체의 우주 관계 속에서 가장 중심적인 진리를 이룬다.

죄인들을 향한 예수의 태도는 정죄(定罪)나 목인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고 사랑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가 언제까지나 보여준다. 예수의 삶과 죽음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선하고 정의로운 생존을 얻게 한다는 점에서 그는 정말로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그의 사랑이 인간의 가슴 속에서 사랑의 반응을 일깨울 만큼, 것처럼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했다. 사랑은 정말로 전달되는 속성을 가지며 영원토록 창조성이 있다.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죄를 용서하고 모든 악행을 삼켜버릴 만큼 충분히 강하고 신성한 사랑을 예시한다. 예수는 이 세상에 공의—단지 기술적인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 더 높은 본질특성의 올바름을 나타내셨다. 신성한 사랑은 단순히 그릇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흡수하고 실재적으로 파괴해 버린다. 사랑으로 하는 용서는 자비로 하는 용서를 아주 초월한다. 자비는 악행의 죄를 한쪽으로 돌려놓는다; 그러나 사랑은 죄와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연약함을 언제까지나 파괴한다. 예수는 새로운 삶의 방법을 유란시아에 전하였다. 그는 악에게 대항하지 말고 악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선을 그를 통하여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예수의 용서는

그저 묵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죄로부터의 구원이다. 구원은 그릇된 것들을 가볍히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그것들을 올바르게 만든다. 참된 사랑은 미움과 타협하지도 용서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미움을 파괴한다. 예수의 사랑은 결코 단순한 용서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주(主)의 사랑은 갱생(更生)과 영원한 생존을 내포한다. 만일 너희가 이 영원한 갱생을 의미한다면 구원을 대속(代贖)이라고 말하는 것이 전적으로 타당하다.

188:5.3 (2018.2) 예수는 사람에 대한 그의 개인적 사랑의 힘에 의해서 죄와 악의 지배를 깨뜨릴 수 있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사람들이 더 나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도록 해방시키셨다. 예수는 미래에 대한 승리가 자체적으로 약속된 해방을 과거에서부터 표현하였다, 그렇게 하여 용서가 구원을 마련하였다. 신성한 사랑의 아름다움이 일단 인간의 가슴속에 충만하게 받아들여지면, 죄의 매력과 악의 힘을 언제까지나 부수어 버린다.

188:5.4 (2018.3) 예수의 고난들이 십자가형 사건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실체 안에서, 나사렛 예수가 실제적이고 격렬한 필사자 실존의 십자가 위에서 25년 이상을

보내셨다. 십자가의 실제 가치는 그것이 그의 사랑, 그의 자비의 완벽한 계시를, 최고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에 있다.

188:5.5 (2018.4) 사람이 거주하는 수백만의 거주하는 세상들에서, 도덕적 투쟁을 포기하고 신앙의 선한 싸움을 단념하도록 유혹 받을 수 있었던 진보하는 수십조에 달하는 창조체들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를 한 번 더 바라보고 나서, 사람의 사심-없는 봉사에 헌신으로 그의 육신화 생명을 버리시는 하느님의 모습에 고무되어 앞으로 나아갔다.

188:5.6 (2018.5)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의 승리는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 태도의 정신 속에 모두 요약된다. 그가 “아버지여,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을 때, 십자가가 악에 대한 진리의 승리와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를 영원히 상징하도록 만드셨다. 그러한 사랑의 헌신은 광대한 우주 전체에 널리 퍼져 나갔으며; 제자들은 주(主)로부터 그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봉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그의 복음의 가장

최초의 선생은, 그들이 돌을 던져 그를 죽일 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였다.

188:5.7 (2018.6) 십자가는 그의 동료 사람들에게 대한 봉사에 그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려 하였던 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최고에 대하여 최극 탄원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그가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려고 하였던 것보다 더 큰사랑을 가질 수는 없다,—그리고 예수는 그의 적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시려는 그러한 사랑을 가졌다, 이 세상에 아직까지 알려진 어떤 것보다도 더 커다란 사랑을 소유하였다.

188:5.8 (2019.1) 유란시아와 마찬가지로, 다른 세계들에서도, 인간 예수가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장엄한 광경에 필사자들이 감동하였으며, 한편 그것은 천사들에게 최고의 헌신을 야기 시켰다.

188:5.9 (2019.2) 십자가는 그의 동료들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 그의 생명을 헌신하는, 거룩한 봉사의 높은 상징이다. 십자가는 죄 많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느님의 무죄한 아들의 희생과 그리고 성내신 하느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상징이 아니라, 지구와 광대한 우주에 걸쳐, 그것은 악에 대한 그들의 선한 증여와 그리하여 바로 그 사랑의 헌신을 하여 그들을 구원하였다는 상징으로 언제까지나 서있다. 십자가는, 비록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같은 죽음의 경우에도, 최고 형태의 사심-없는 헌신, 전심으로 사명활동하는 봉사에 의로운 일생을 한것 증여하는 최극 헌신의 상징으로 서있다. 그리고 예수가 증여한 일생의 이 커다란 상징의 바로 그 모습이 진실로 우리 모두에게 나아가서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원하도록 고무시킨다.

188:5.10 (2019.3) 사고력 있는 남자와 여자들이 그가 십자가 위에서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모습의 예수를 바라볼 때, 그들이 비록 최고로 심각한 일생의 어려움에 닥치더라도 그들은 도저히 다시 불평할 수 없을 것이며, 사소한 고민거리나 그들의 많은 순전히 허구적인 불평거리들의 경우에는 더욱 적을 것이다. 그의 일생은 너무나 영광스러웠고 그의 죽음은 너무나 승리에 찼으므로 우리 모두는 둘 모두를 공유하려는 기꺼운 마음으로 이끌려진다. 예수의 소년 시절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엄한 광경에 이르기까지, 미가엘의 전체 증여에는 진실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188:5.11 (2019.4) 그러므로, 너희가 십자가를 하느님의 계시로서 바라볼 때, 너희가 원시인의 눈이나 그 후의 미개인의 관점으로 보지 않도록 확실히 하여라, 그 둘은 하느님을 엄격한 공의와 엄정한 법 집행의 냉혹한 주권자로 간주한다. 오히려, 예수가 그의 광대한 우주에 있는 필사 종족들에게 증여로 그의 일생의 임무에 쏟으신 그의 사랑과 헌신의 최종적인 현시활동을 십자가에서 너희가 보도록 확실히 하여라. 필사 구체들에 있는 그의 아들들을 위한 아버지의 신성한 사랑이 전개되는 절정을 사람의 아들의 죽음 속에서 보아라. 그리하여, 십자가는 그러한 선물들과 헌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하는 애정의 헌신과 자발적인 구원의 증여를 표현한다. 십자가에는 아버지께서 요구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으며—오직 예수가 자진해서 주었으며, 그가 피하기를 거부하였다.

188:5.12 (2019.5) 만일 사람이 달리 예수를 깊이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땅에서의 그의 증여의 의미를 납득할 수도 없어도, 적어도 그가 필사자로서 고통을 겪은 그러한 그의 동료관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결코

자신의 현세적 고통의 본성이나 정도를 창조자가 알지 못한다고 걱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188:5.13 (2019.6)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 하느님에 대한 사람의 화해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그의 아들의 끝남이 없는 자비에 대한 사람의 실현을 자극하고 이 우주의 진리들을 전체 우주에 널리 알리기 위하였다는 것을 안다.

제 189 편 부활

189:0.1 (2020.1) 금요일 오후, 예수를 장사지낸 이후 바로, 그때 유란시아에 있었던 네바돈의 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잠자는 의지 창조체의 부활에 대하여 그의 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위한 가능한 기법의 숙고에 들어갔다. 미가엘의 창조체들인 소집된 지역 우주의 이 아들들은 그들 자신들의 책임아래 이 일을 하였다.; 가브리엘이 그들을 소집한 것이 아니었다. 자정 무렵에 그들이 창조체는 창조자의 부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미가엘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다시 그것을 취할 힘도 가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준 가브리엘의 충고를 그들이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천사장들, 생명운반자들, 그리고 창조체의 갱생과 모론시아 창조의 일에 협동하는 그들의 다양한 연관-동료들의 이 회의가 산회된 조금 후에, 그 당시 유란시아에 집합된 하늘의 무리들을 직접 지휘하고 있던 예수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는 애타게 기다리는 감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189:0.2 (2020.2) “너희의 창조자-아버지가 생명으로 돌아오심에 너희는 아무도 도울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이 세상의 필사자로서 그는 필사자 죽음을 체험하였다; 우주의 주권자로서 그는 여전히 살아계시다. 너희가 보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육신의 일생으로부터 모론시아의 일생으로 옮겨가는 필사자 전환이다. 이 예수의 영적 전환은, 내가 그의 개인성으로부터 분리되어 너희의 일시적인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미 완료되었다. 너희의 창조자-아버지는 그의 필사 창조체들의 전체 체험, 물질세계에 탄생으로부터 자연적인 죽음과 모론시아의 부활, 을 통하여 참된 영적 실존의 지위에 이르기로 선택하였다. 이 체험의 어떤 위상은 너희가 보게 되겠지만, 너희가 그것에 관여하지는 못한다. 너희가 일상적으로 창조체를 위하여 하는 그러한

것들을 너희는 창조자를 위하여 할 수가 없다. 창조자 아들은 그가 창조한 아들들 가운데 누구의 모습을 입고도 자신을 증여할 수 있는 힘을 자신 속에 갖고 계신다; 그는 자신을 유지하는 생명을 버리고 그리고 다시 찾을 수 있는 힘을 그 자신 속에 갖고 계신다; 그리고 그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직접 지도에 의해서 이러한 힘을 가졌다, 나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의 사정을 알고 있다.”

189:0.3 (2020.3) 그들은 개인성구현된 조절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모두, 가브리엘로부터 아래로는 가장 신분이 낮은 케루빔 천사들에 이르기까지, 간절하게 기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들은 무덤 속에 있는 예수의 필사 육신을 보았다; 그들의 사랑하는 주권자의 우주 활동에 대한 증거들을 인지하였으나; 그러한 현상을 납득하지 못한 채, 일어날 일들을 인내심으로 기다렸다.

제 1 장. 모론시아 전환

189:1.1 (2020.4) 일요일 아침 2시 45분에, 파라다이스의 미(未)-정체성확인된 일곱 개인성들로 구성된 파라다이스 육신화 위원회가 그 현장에 도착하였고 즉시 무덤 주위에 배치되었다. 3시 10분 전, 물질적인 것과 모론시아의

복합된 활동들의 심한 진동이 요셉의 새 무덤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서기 30년 4월 9일인, 이 일요일 아침 3시 2분에, 나사렛 예수의 부활된 모론시아 형체와 개인성이 그 무덤으로부터 밖으로 나왔다.

189:1.2 (2021.1) 매장된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가 나오신 후에도, 그가 이 땅에서 약 36년 동안 그 속에서 사시고 지상에서 활동하였던 육신은 금요일 오후에 요셉과 그의 연관-동료들에 의해 영면하도록 눕혀졌을 때와 똑같이, 훼손됨이 없이 세마포에 싸여 묘실에 아직 누여 있었다. 또한 무덤 입구를 막은 바위도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빌라도의 봉인도 여전히 깨지지 않았다: 군인들도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 성전 경비병들은 계속 임무수행을 하고 있었다; 로마 경비병은 자정 무렵에 교체되었다. 이들 감시자들의 누구도 그들의 감시 대상이 새롭고 더 높은 실존의 형태로 소생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경비를 서고 있는 몸체는 이제 해방되고 부활된 예수의 모론시아 개인성과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버려진 바깥 겹질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을 짐작하지 못하였다.

189:1.3 (2021.2)

인류는, 개인적인 것, 사물은 모든 것에서 모론시아의 뼈대이며, 그리고 그 둘은 영속하는 영 실체의 반영된 그림자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시간을 영원의 움직이는 모습으로, 그리고 공간을 파라다이스 실체의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림자로 간주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는가?

189:1.4 (2021.3)

우리가 판단하는 바로는, 이 우주에 있는 어떤 창조체도, 그리고 다른 우주에 있는 어떤 개인성도 나사렛 예수의 모론시아 부활에 연관해서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 금요일에 그는 이 세상의 필사자로서의 생명을 버리셨다; 일요일 아침에 그는 놀라시아텍에 있는 사타니아 체계의 모론시아 존재로 그것을 다시 취하였다. 예수의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하는 그 시간 무렵에 우리가 진술한 대로 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또한 예수의 필사자 물질적 유해는 수의에 싸인 채로 눕혀져 있는 요셉의 새로운 무덤 바로 그곳에서 발생한, 이러한 필사자 전환이나 모론시아 부활과 연관되어 모두에게 알려진 현상을 우리는 역시 기록할 수 있다.

189:1.5 (2021.4) 이 모론시아의 깨움에 지역우주의 어떤 창조체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파라다이스의 일곱 개인성들이 무덤을 둘러싼 것을
알지만, 주(主)의 깨움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무덤 바로 위로 예수가 가브리엘 옆에
나타나자마자, 파라다이스로부터 온 일곱 개인성들은
즉시 유버사로 떠나겠다는 그들의 의사를 신호했다.

189:1.6 (2021.5) 다음과 같이 기술함으로써 예수의 부활에 대한
개념을 언제까지나 정립해 두기로 하자:

189:1.7 (2021.6) 1. 그의 물질적인 혹은 육체적인 몸은 부활된
개인성의 일부분이 아니었다. 예수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그의 유체는 묘실 안에 훼손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는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움직이자 않고 그리고 빌라도의
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매장된 무덤에서 나왔다.

189:1.8 (2021.7) 2. 그는 영(靈)이나 네바돈의 미가엘로서
무덤에서 나오신 것이 아니었다; 유란시아에 필사 육신과
같이 육신화하기 전의 그분이었던 창조자 주권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았다.

189:1.9 (2021.8)

3. 그는, 부활된 모론시아 상승 존재들로서, 사타니아의 이 지역 체계의 첫 번째 맨션세계의 부활실에서 나오는 모론시아 개인성들과 거의 똑같이, 요셉의 무덤에서 나왔다. 그리고 1번 맨션계 부활실들의 넓은 뜰 가운데에 있는 미가엘 기념관의 현존이 우리들에게 유란시아에서의 주(主)의 부활이 맨션세계들 체계의 첫 번째인 이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촉진되었다는 것을 유추하도록 이끈다.

189:1.10 (2022.1)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의 첫 번째 활동은 가브리엘을 맞이하고는 그에게 임마누엘의 지도에 따라 우주의 관련사들을 집행하는 임무를 계속하도록 지도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임마누엘에게 형제로서의 인사를 전하라고 멜기세덱들의 우두머리에게 지도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필사자 전환에 대하여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확인이 있었는지를 에덴시아의 지고자에게 질문하였다; 그리고 그들 계층의 창조체로서 그들의 창조자를 환영하고 영접하기 위하여 이곳에 함께 모인, 일곱 맨션세계들로부터 모여든 모론시아 무리들에게로 돌아서신 후, 예수는 필사자-이후 생애의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였다. 모론시아 예수가 말씀한 내용은 이렇다:

“육신으로의 내 일생을 완결하였으므로, 나는 상승하는 나의 창조체들의 일생을 좀 더 자세히 알고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을 좀 더 계시할 수 있도록, 과도기 형태를 가지고 이곳에 잠시 동안 머물고자 한다.”

189:1.11 (2022.2) 예수는 말씀을 마친 후에,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에게 신호를 보내셨으며, 부활을 지켜보기 위하여 유란시아에 모였던 모든 우주의 지능존재들은 그들 각자의 우주 임지로 즉시 떠났다.

189:1.12 (2022.3) 예수는 이제 그가 유란시아에 잠시 동안 살려고 선택했었던 일생에서의 요청들에 대하여, 창조체로서, 내보여지게 될, 모론시아 차원의 접촉을 시작하였다. 모론시아 세계로 들어가는 이 처음 의례는 지구 시간으로 한 시간 이상 소요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는 그의 부활에 대한 증거라고 여길만한 것을 발견하려고 빈 무덤 안을 기이하게 여기며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의 예전 연관-동료들과 교통하려는 그의 욕망 때문에 두 번 중단되었다.

189:1.13 (2022.4) 이윽고 예수의 필사자 전환—사람의 아들의 모론시아 부활—이 완료되었다. 물질과 영 사이의 중간

개인성으로서 주(主)의 잠시 동안의 체험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주(主)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하였다; 어떤 개인성도 그를 돕지 않았다. 그는 이제 모론시아의 예수로서 사시게 되었고, 이러한 모론시아 생활을 시작할 때 그의 물질적 유체는 훼손됨이 없이 무덤 안에 눕혀져 있었다. 군인들은 여전히 지키고 있었고, 바위에 붙어 있는 총독의 봉인은 아직 파괴되지 않았다.

제 2 장. 예수의 물질적인 몸

189:2.1 (2022.5) 3시 10분, 부활한 예수가, 사타니아의 일곱 맨션세계들로부터 모여든 모론시아 개인성들과 형제우애를 가지는 동안에, 천사장들—부활의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가브리엘에게 다가가서 예수의 유체에 관해서 질문하였다. 천사장들의 우두머리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주권자 미가엘의 증여 체험에서의 모론시아 부활에는 우리가 참여하면 안 될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그의 유체를 즉시 분해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非)물질화의 기법을 사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시간을 가속시키는 과정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권자께서 유란시아에 사시는 것과 돌아가시는 것을 본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늘의 무리들은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유지자이신 그의 인간 형태가 서서히 부식되어 가는 장면을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네바돈 전체의 하늘 지능존재들의 이름으로 나는 저에게 나사렛 예수의 필사 몸체의 보호관리를 위임해 주시어, 우리가 즉각적인 분해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권한을 요청합니다.”

189:2.2 (2023.1) 그리고 가브리엘이 에덴시아의 지고자 선임자와 협의하였을 때, 하늘 무리들의 천사장 대변자는 그가 결정하는 대로 예수의 물리적 잔재에 대한 그런 처분을 행하도록 허락되었다.

189:2.3 (2023.2) 천사장들의 우두머리는 이 요청이 허락된 후, 그는 모든 계층의 하늘 개인성들의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수많은 무리와 함께, 많은 그의 동료들을 그의 보조로 소집하였고, 그리고 나서 유란시아 중도자들의 도움으로 예수 육체적 몸체를 점유하러 나섰다. 이 유체는 순수하게 물질적 창조였다; 그것은 물리적인 것이며 말 그대로였다; 그것은 부활의 모론시아 형태가 봉인된 묘실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무덤에서 옮겨질 수는 없었다. 어떤 모론시아 보조 개인성들의 도움에 의하여, 모론시아

형태는 한 때 마치 영과 같이 그렇게 통상의 물질과는 무관하게 될 수 있고, 한편 또 다른 때에는 이 세상의 필사자들과 같이 물질적인 존재들에게 식별될 수 있고 또 접촉될 수 있다.

189:2.4 (2023.3) 그들이 거의 순간적인 유체의 분해로, 존경을 담아 처리하기 위하여, 예수의 유체를 무덤에서 옮길 준비가 되었을 때, 무덤 입구에서 돌들을 굴러내는 일이 유란시아의 2차중도자들에게 할당되었다. 두 돌들 중에서 보다 큰 것은 맏돌 모양의 거대한 원형 바위였으며, 그것을 앞뒤로 움직여 무덤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바위 위를 끌로 파낸 홈을 따라서 움직였다. 무덤을 지키던 유대인 경비병들과 로마 군인들은, 새벽의 희미한 빛 속에서, 이 거대한 돌이 겉으로 보기에 저절로—그러한 움직임을 일으킬만한 수단이 아무 것도 눈에 보이지 않은 채로—무덤 입구로부터 굴러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혔으며, 그 현장으로부터 급히 도망쳐 버렸다. 유대인들은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돌아가 성전에 있는 지휘관에게 이 일들을 보고하였다. 로마인들은 안토니아의 요새로 도망갔고

백부장이 출근하자마자 자기들이 목격한 것을 그에게 보고하였다.

189:2.5 (2023.4) 유대인 영도자들은 반역자 유다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예수를 제거하고자 하는 야비한 일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자기 위치를 이탈한 그 경비병들에게 벌을 주려는 생각 대신에, 그들은 이 경비병들과 로마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하였다. 그들은 20명의 사람들 각자에게 일정한 양의 돈을 나누어주면서,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그의 제자들이 우리들을 갑자기 습격하고 그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말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그 유대인 영도자들은 그들이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하여 혹시 빌라도가 알게 되는 경우에 그 총독 앞에서 군인들을 변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189:2.6 (2023.5)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교인의 믿음은 "빈 무덤"의 사실에 기초를 두었다.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은 정말로 하나의 사실이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부활에 대한 진리는 아니다. 처음 신자들이 무덤에 도착하였을 때 무덤은 정말로 비어 있었고, 이 사실은 주(主)의 확실한

부활에 대한 사실과 관계적-연합되어, 진실이 아닌 믿음, 곧 예수의 물질적이고 필사 육신이 무덤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가르침의 형성으로 이끌었다; 영적 실체들과 영원한 가치들과 관계가 있는 진리는 항상 분명한 사실들의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각각의 사실들이 물질적으로 옳을지라도, 여러 사실들이 합쳐진 것이 반드시 참된 영적 결론들로 인도하는 결과가 아니다.

189:2.7 (2023.6) 요셉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은, 예수의 시신이 회복되거나 부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적 자연의 간섭 없이 그리고 필사자 분해와 물질적으로 부패되는 평범하고 눈에 보이는 과정들의 작용을 거치지 않고, “먼지가 먼지로” 돌아가는 특별하고 독특한 분해를 잘 제공하자는 하늘 무리들의 요청이 허락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189:2.8 (2024.1) 예수의 필사 유체는, 시간의 관점에서, 자연적 분해 방식이 크게 가속화되어 거의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며 촉진되었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몸체들의 특징에서처럼, 원소가 집대성-해체되는 똑 같은 자연적인 과정을 겪은 것이었다.

189:2.9 (2024.2) 비록 부활한 모론시아 주(主)를 만나고, 알아보고, 또한 같이 교제한 많은 사람들의 증거에 의해서 이 가르침이 확증되기는 하지만, 미가엘 부활의 참된 증거들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들이다. 그가 유란시아를 최종적으로 떠나시기까지 그는 거의 천 명에 달하는 인간 존재들의 개인적 체험의 일부가 되었다.

제 3 장. 섭리시대적 부활

189:3.1 (2024.3) 그 일요일 아침 4시 30분이 조금 지났을 때, 가브리엘은 천사장들을 그의 옆으로 모이게 하였으며 유란시아에서의 아담의-섭리시대의 종결에서의 일반 부활을 시작할 준비를 완료하였다. 이 엄청난 사건에 관계된 세라핌천사들과 케루빔 천사들의 커다란 무리가 알맞은 형태로 정렬되었을 때, 모론시아 미가엘이 가브리엘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당신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듯이 아들도 그 자신 속에 생명을 가지도록 생명을 주셨다. 비록 내가 아직 우주 지배권 행사를 충분하게 되찾은 것은 아니지만, 나 자신이 자아-부과한 이 제한이 잠을 자고 있는 내 아들들에게 생명을 수여하는 일을 어떤 방법으로도 제한하지 못한다; 행성 부활의 호출을 시작하라.”

189:3.2 (2024.4)

그 때 천사장들의 순환회로가 유란시아로부터 처음으로 작동되었다. 가브리엘과 천사장 무리들이 행성의 영적 극(極)점의 위치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신호를 보내자, 맨션세계들 체계의 첫 번째 세계에, “미가엘의 명령이니, 유란시아 섭리시대의 죽은 자들은 일어나라!”는 가브리엘의 음성이 전해졌다. 그러자 아담 시대 이후로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 있던 유란시아의 인간 종족들의 모든 생존자들, 그리고 아직 심판을 받지 않은 자들이 모론시아 상태가 될 준비를 갖추고 맨션세계의 부활실에 나타났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세라핌천사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이 맨션세계들로 떠날 준비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이 생존하는 필사자들의 단체적인 관리에 한번 배정된, 이 세라핌천사 수호자들은 맨션세계의 부활실들에서 그들이 깨어나는 순간에 그곳에 나타나게 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의 모론시아 부활과 관련되어 이곳에 있는 가브리엘 현존의 필요에 의해서 바로 이 세계에 있었다.

189:3.3 (2024.5)

개별적인 세라핌천사 수호천사를 가진 수 없이 많은 개별존재들과, 영적 개인성의 진보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을 성취한 자들이 아담과 이브 시대 이후의

시대들 동안에도 맨션세계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란시아 아들들의 특별한 그리고 천 년 마다의 많은 부활들이 있었지만, 이번의 경우는 세 번째의 행성 출석 점호 혹은 완벽한 섭리시대적 부활들이었다. 첫 번째의 경우는 행성의 영주가 도착하였을 때 있었고, 두 번째는 아담 시대에, 그리고 이번의 세 번째는 모론시아 부활, 나사렛 예수의 필사자 전환을 신호로서 발생했다.

189:3.4 (2024.6) 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행성 부활의 신호를 받아들였었을 때, 사람의 아들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는, 지역우주의 모든 아들들을 그들 각자의 해당 지휘관들의 관할권 아래로 돌아가게 하면서, 그의 권한을 유란시아에 모인 하늘 무리들에게 양도하였다. 그리고 그가 이 일을 다 마쳤을 때, 미가엘의 필사자 전환이 완료되었음을 임마누엘에게 등록하기 위하여 구원자별로 떠났다.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근무하라고 요청받지 않은 모든 하늘 무리들은 즉시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모론시아 예수와 함께 유란시아에 남아 있었다.

189:3.5 (2025.1) 그리고 이것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인간 시야의 한계들에서 자유로운, 그것들이 실제로 발생했던 것을 본 자들의 관점에서 본 예수의 부활 사건들의 설명이다.

제 4 장. 빈 무덤 발견

189:4.1 (2025.2) 일요일 새벽 예수가 부활한 시간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 열 명의 사도들이 엘리야와 마리아 마가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야만 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은 그 다락방 안에, 주(主)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동안 기대고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의자 위에 누워서 잠들어 있었다. 그 일요일 아침에 그들은 도마를 제외한 전원이 함께 모여 있었다. 도마는 그들이 처음으로 다 함께 모였던 토요일 밤늦은 시간에 잠시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고심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자기 친구들을 둘러본 후에 즉시 그 방을 떠났으며, 벳바게에 있는 시몬의 집으로 갔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불행을 혼자서 비통해 할 생각이었다. 사도들 모두가 겪은 고통은 의심과 절망에서 기인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과 비탄 그리고 수치심에서 기인된 것이었다.

189:4.2 (2025.3)

니고데모의 집에는 다윗 세베대와 아리마대 요셉, 예수의 예루살렘 제자들 중에서 보다 두드러진 12명 내지 15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는 15명 내지 20명의 지도적인 여자 신도들이 있었다. 오직 이 여인들만이 요셉의 집에 머물면서 안식일기간 동안 그리고 안식일이 끝난 저녁 시간 동안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경비부대가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두 번째 돌을 무덤 앞에 굴러 놓았다는 사실과, 이 두 돌들에 빌라도의 봉인이 되어져 있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189:4.3 (2025.4)

이 일요일 아침 세시 조금 전, 날이 밝아오는 첫 번째 징후가 동쪽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에, 다섯 명의 그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그들은 이미 많은 양의 특별한 향료 기름을 준비하였으며, 많은 세마포 헹겊을 가져갔다. 그것은 예수의 시신에 더욱 완벽하게 기름을 바르고 새로운 헹겊으로 조심스럽게 싸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189:4.4 (2025.5)

예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 길을 떠난 여인들은 다음과 같다: 막달라 마리아, 알패오 쌍둥이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형제의 어머니 살로메, 추자의 아내 요안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에즈라의 딸 수잔나.

189:4.5 (2025.6) 기름을 소지하고 있는 다섯 명의 여인들이 빈 무덤에 도착한 것은 3시 30분경이었다. 그들은 다마스쿠스 문을 지나올 때, 여러 명의 군인들이 매우 공포에 질린 모습으로 도시로 도망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이것으로 인하여 잠시 동안 지체하였지만; 무슨 일이 더 일어나지 않자, 가던 길을 재촉하였다.

189:4.6 (2025.7) 그들은 길을 가던 도중에 "우리를 도와서 돌을 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서로 물어보았기 때문에, 무덤 입구에서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을 본 그들은 매우 놀랐다. 그들은 짐을 내려놓고 크게 기이히 여기면서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서로 얼굴만 바라다보았다. 그들이 공포에 떨면서 그곳에 서 있는 동안, 막달라 마리아는 보다 작은 바윗돌을 옆으로 비키면서, 열린 묘실 안으로 과감하게 들어갔다. 이 요셉의 무덤은 길 동편 언덕 위에 있는 그의 공원 안에 있었고, 동쪽 방향으로 위치해 있었다. 이때에는 새 날이 어느 정도 밝아진 후였으므로 마리아는 주(主)의 시신이 눕혀져 있었던

자리를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었으며,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예수의 시신을 눕혀 놓았던 바위의 오목한 곳에서, 마리아는 오직 그의 머리가 있던 자리에 접혀진 수건과, 하늘 무리들이 그 시신을 치우기 전에 그들이 돌 위에 누어 놓았던 대로 천에 싸여 원래대로 눕혀져 있던 천들만 보았다. 덮어 씌웠던 천은 시신이 눕혀져 있던 발 끝 쪽에 있었다.

189:4.7 (2026.1) 마리아는 무덤 입구에서 잠시 동안 기다린 후에서야(무덤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확실하게 보지 못하였다),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고 그 자리에 오직 수의들만 있음을 보았으며,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여인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성문에서 겁에 질린 군인들을 만난 이후로 그들은 몹시 초조하였으므로, 마리아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재빨리 도망쳤다. 그들은 단숨에 다마스쿠스 문까지 달려갔다. 그 때 요안나가 마음을 추스르게 되었고 마리아를 그곳에 두고 자기들만 도망쳤다는 것을 기억하고; 동행자들을 불러 세운 후에, 다시 무덤으로 향하였다.

189:4.8 (2026.2) 무덤에서 나왔을 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할 자매들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더욱 공포에 질려버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이 무덤 가까이로 돌아오자, 그들에게 달려와서 흥분한 음성으로 이렇게 소리쳤다: “그가 거기에 없다—저들이 그를 가져가 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무덤으로 데리고 갔으며, 모두 들어가서 그곳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

189:4.9 (2026.3) 다섯 명의 여인들이 모두 입구 근처에 있는 바위 위에 앉아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아직도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사실이 생각에 떠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안식일을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시신이 다른 무덤으로 옮겨졌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식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숙고할 때, 수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다; 시신이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싣은 그 형궤들은 어떻게 하여 묘실 선반 위 똑같은 자리에 명백히 원래대로 남겨져 있었겠는가?

189:4.10 (2026.4) 새 날이 밝아오는 이른 아침에 이 여인들이 그곳에 앉아 있을 때, 그들은 한 쪽 옆에 아무 말 없이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낯선 사람을 발견하였다. 잠시 동안 그들은 다시 놀랐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마치 그를 정원 관리인으로 생각한 것처럼. 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물었다: “우리 주(主)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들이 그를 어느 곳에 눕혀 놓았습니까? 우리가 가서 그를 데려오게 우리에게 알려 주십시오.” 그 낯선 사람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그녀는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예수가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다.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요셉의 무덤에 눕혀졌던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를 어디로 옮겼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그 예수가 갈릴리에서도 너희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그 여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는 하였지만, 주(主)가 너무나 많이 변화되어 있었으므로 어슴푸레하게 밝아오는 빛을 등지고 계시는 그를 아직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말씀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귀에 익은 음성으로 “마리아야.”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늘 듣던 동정심과 애정에 넘치는 인사의 말을 들은 그녀는 그것이 주(主)의 음성인 것을

알아보았으며, 그의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소리쳤다: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주(主)시여!” 그제야 다른 여인들도 모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들 앞에 서 계신 그가 주(主)이신 것을 알아보았으며, 신속히 그의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다.

189:4.11 (2027.1) 이 사람들의 눈이 모론시아 형태의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 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어떤 모론시아 개인성들과 공동으로 작용한, 변환자들과 중도자들의 특별한 사명활동 때문이었다.

189:4.12 (2027.2) 마리아가 그의 발을 껴안으려고 하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마리아야, 네가 육신으로 나를 알았던 것과 같은 내가 아님으로, 나를 만지지 마라.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전에 이런 형태로 너희와 잠시 동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모두 가서, 내 사도들에게—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부활되었다는 것과 너희가 나와 이야기하였다는 것을 전해라.”

189:4.13 (2027.3) 이 여인들은, 놀라서 어리벙벙하였던 충격에서 벗어나자, 급히 도시로 돌아가서 엘리야 마가의 집으로 갔으며,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곳에 있는 열

명의 사도들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사도들은 그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 여인들이 환상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예수가 자기들에게 하였던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가 되풀이하여 말하였을 때, 주(主)가 자기 이름을 말씀하였다는 것을 들은 베드로는, 급히 무덤에 가서 이 일들을 직접 확인하려고 다락방을 뛰쳐나갔으며, 요한이 바로 뒤쫓아 따라갔다.

189:4.14 (2027.4) 여인들은 예수와 대화한 내용을 다른 사도들에게 반복하여 말했지만,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베드로와 요한과는 달리, 직접 확인하러 가려고 하지도 않았다.

제 5 장. 무덤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

189:5.1 (2027.5) 두 사도들이 골고다에 있는 요셉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동안, 베드로의 생각들은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였다; 그는 주(主)를 만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예수가 자기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였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의 희망이 솟아났다. 그는 예수가 실제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반쯤 믿게 되었다; 그는 세 번째 날에 일어나신다는 약속을 회상하였다. 이상한 일이지는 하지만, 십자가형이 있는 이후로, 그가

예루살렘을 지나 북쪽으로 급히 달려가는 이 순간까지, 그 약속이 그에게 생각나지 않았었다. 요한은 성 밖으로 급히 나가면서 기쁨과 희망의 야릇한 환희가 그의 혼 속에 솟아나고 있었다. 그는 그 여인들이 부활한 주(主)를 정말 만났다는 것을 반쯤 납득하고 있었다.

189:5.2 (2027.6) 베드로보다 나이가 어린 요한은 그를 앞질러 뛰어갔으며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다. 무덤을 보면서, 요한은 문 앞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것은 마리아가 설명한 대로였다. 바로 이어서 시몬 베드로가 달려왔고, 들어가서, 너무나 색다르게 놓여있는 수의들과 빈 무덤을 살펴보았다. 베드로가 무덤에서 나오자, 요한도 들어가서 직접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으며, 그 후에 그들은 바위 위에 걸터앉아 자신들이 보고들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들이 그곳에 앉아 있는 동안, 예수에 관하여 들은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새겨보았으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없었다.

189:5.3 (2027.7) 베드로는 처음에, 무덤이 약탈당했다, 경비병들을 매수하고 적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시신이 도둑을 맞았다고 하기에는 무덤이 너무 질서 정연하게 되어 있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또한 어떻게 하여 형骸들이 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명백히 원래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다시 무덤으로 들어갔고 보다 자세하게 수의들을 살펴보았다. 그들이 두 번째로 무덤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와 무덤 입구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리아는 예수가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을 믿으면서 사도들에게 갔었지만, 그들이 모두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자, 그녀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다. 그녀는 귀에 익은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되는 무덤 근처로 돌아오고 싶었던 것이다.

189:5.4 (2027.8)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 마리아가 아직 그곳에 남아 있을 때, 주(主)는 다시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의심하지 말고;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믿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내가 부활하였다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도 나타나리라는 것 그리고 약속대로 그들보다 먼저 내가 곧 갈릴리로 갈 것이라는 말을 그들에게 가서 다시 전해라.”

189:5.5 (2028.1) 마리아는 급히 마가의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와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하여 사도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은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오자, 그들의 조롱하는 태도는 사라졌으며,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제 190 편 예수의 모론시아 출현

190:0.1 (2029.1) 부활한 예수는 이제, 그 영역에서 상승하는 필사자의 모론시아 생애를 체험하기 위하여, 유란시아에서 잠시 동안 지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비록 모론시아 생명에서의 이 시간이 그가 필사자로 육신화 했던 세상에서 보내야만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것은 예루셈에 있는 일곱 맨션세계들의 진보하는 모론시아 일생을 거쳐 가는 사타니아 필사자들의 체험과 모든 점에서 아주 닮은 것이다.

190:0.2 (2029.2) 예수 안에 고유하게 존재하고—생명의 자질—그로 하여금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한 이 모든 힘은, 그가 왕국을 믿는 자들에게 수여하고, 지금도 자연적인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이 부활하는 것을 확인하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다.

190:0.3 (2029.3)

세계들의 필사자들은 부활의 아침에, 예수가 이 일요일 아침에 무덤에서 일어났을 때 가지셨던 변화된 또는 모론시아 몸과 같은 유형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몸들 속에는 순환되는 피가 없고, 그러한 존재들은 통상적인 물질적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론시아 형태들은 실제이다. 예수가 부활한 후에 여러 부류의 신자들이 그를 보았을 때, 그들은 실제로 그를 본 것이었다; 그들은 환상이나 환각으로 인하여 자아-기만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

190:0.4 (2029.4)

예수의 부활에 대한 변치 않는 신앙은, 초기 복음을 가르치는 모든 지파에서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다.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복음 선생들 모두가 주(主)의 부활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연합되었다.

190:0.5 (2029.5)

막달라 마리아가 주(主)의 부활을 전파함에 있어서 취하였던 탁월한 역할을 조망해 볼 때, 베드로가 사도들의 대변인이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여자 대원들의 대변인이었음이 기록되어야만 한다. 마리아는 여자 일꾼들의 우두머리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수석 교사였고

대중을 위한 대변자였다. 마리아는 이미 매우 신중한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정원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말을 걸면서 보여준 대담성은 빈 무덤을 발견하였을 때 그녀가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유대 여인이 낯선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잠시 동안 잊도록 한 것은, 그녀의 사랑에서의 깊이와 고뇌, 그녀의 헌신에서의 충만함이었다.

제 1 장. 부활의 소식

^{190:1.1 (2029.6)} 사도들은 예수가 자기들을 떠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므로; 그들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죽음에 대한 그의 모든 말씀들을 가볍게 여겼었다. 그들은 부활이 일어난 것처럼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으며, 의심의 여지없는 증거의 강요와 그리고 그들 자신 스스로의 체험에서의 절대적 증명과 마주칠 때까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190:1.2 (2030.1)} 그들이 예수를 보았고 그와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다섯 여인들의 보고를 사도들이 믿지 않고 거부하였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돌아갔고, 다른

여인들은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의 딸과 다른 여인들에게 자신들의 체험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그들이 설명하는 것들을 믿었다. 6시가 조금 지났을 때, 예수를 보았던 아리마대 요셉의 딸과 4명의 여인들은 니고데모의 집으로 갔으며, 그들은 그 동안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그곳에 모여 있는 요셉, 니고데모, 다윗 세베대, 그리고 다른 남자들에게 이야기하였다. 니고데모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의심하였고, 예수가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그 시신을 가져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요셉과 다윗은 그 보고를 믿고 싶어졌다, 그리하여 무덤을 조사하기 위하여 급히 서둘러 나갔으며, 그들은 여인들이 설명한 대로 모든 것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묘실을 들여다 본 마지막 사람들이 되었는데, 대제사장이 성전 경비병들의 지휘관을 7시 30분경에 무덤에 보내어 수의를 모두 없애버렸기 때문이었다. 그 지휘관은 모든 것들을 세마포 헝겊에 싸서 근처에 있는 절벽 너머로 던져버렸다.

190:1.3 (2030.2) 무덤에서 다윗과 요셉은 바로 엘리야 마가의 집으로 갔으며, 그들은 그곳의 다락방에서 열 명의

사도들과 회합을 가졌다. 예수가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비록 희미하기는 하였지만, 요한 세베대만이 믿으려고 하였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믿었지만, 주(主)를 만나지 못하자, 심각한 의심에 빠졌다.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 시신을 가져갔다고 믿으려 하였다. 다윗은 그들과 논쟁하지는 않았지만, 떠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사도들이니 이 일들을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다룰 생각은 없지만; 나는 이제 오늘 아침에 메신저들을 모이도록 지시해 놓은 니고데모의 집으로 돌아가겠으며, 그리고 그들이 모두 모이면, 주(主)가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전파하는 마지막 임무를 맡길 작정입니다. 나는 주(主)께서 그가 죽은 다음 셋째 날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왕국 대사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이 자아-임명한 통신과 정보의 우두머리는 사도들과 헤어졌다. 다락방에서 나가던 그는 사도들의 자금 전부가 들어있는 유다의 돈주머니를 마태 레위의 무릎에 내려놓았다.

190:1.4 (2030.3) 26명에 달하는 다윗의 메신저들 중에서 마지막 사람이 니고데모의 집에 도착한 것은 9시 30분경이었다.

다윗은 넓은 안마당에 즉시 그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190:1.5 (2030.4) “여러분 그리고 형제들이여, 내게 그리고 서로에게 했던 맹세에 따라서, 지금까지 당신들은 나에게 봉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 손 안에 거짓된 정보를 들려 보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당신들이 증언해 줄 것을 청합니다. 나는 이제 왕국의 메신저 자원자로서의, 당신들에게 당신의 마지막 임무를 띄워 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당신들을 당신의 맹세에서 해제하며 이것으로서 메신저 무리단을 해산합니다. 여러분, 나는 당신들에게 우리가 우리 일을 완결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주(主)는 필사자 메신저가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들이 그를 체포하기 전에, 우리에게 그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무덤을 보았는데—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대화를 나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네 명의 여인들과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들을 해산하고, 작별을 고하면서, 당신들의 해당 임무로서 당신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믿는

자들에게 품고 갈 마지막 소식은 '예수가 죽음에서 일어났고; 그 무덤은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190:1.6 (2030.5) 그곳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 때 그들은 메신저들에 대한 것을 단념시키려 애썼지만, 그들은 의문스러운 말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일요일 아침 10시 조금 전에, 26명의 이 소식 전달자들은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막강한 진리의-사실을 전하는 첫 전령으로서 나아갔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다른 것에서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다윗 세베대와 서로 간에 맹세를 지키면서 이 임무를 시작하였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매우 자신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려는 머무름도 없이 이 업무를 띄고 출발하였다; 그들은 다윗의 말은 믿었다. 다윗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믿은 그들 대부분은, 그리고 어느 정도 의문을 가진 자들도, 모두 똑같이 확신을 가진 것처럼, 그리고 모두 똑같이 재빠르게 그 소식을 전하였다.

190:1.7 (2031.1) 왕국의 영적 무리단인 사도들은 이 날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두려움을

현시하였고 불신을 나타냈으나, 반면에 사람의 형제신분에 대한 주(主)의 복음을 사회화시키는 일에 대한 처음 시도를 대표하는 이 평신도들은, 그들의 두려움이 없고 유능한 영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세계와 우주의 부활한 구원자를 전파하기 위해 나아갔다. 그리고 그의 선택받은 대표자들은 그의 말씀을 믿거나 목격한 증거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들은 이 사건 많은 봉사에 종사하였다.

190:1.8 (2031.2) 26명의 이 사람들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과, 남쪽으로는 비엘세바에서 북쪽으로는 다마스쿠스와 시돈에 이르기까지; 동쪽으로는 필라델피아에서 서쪽으로는 알렉산드리아까지, 신자들이 모여 있는 모든 처소들로 파견되었다.

190:1.9 (2031.3) 다윗은 형제들과 헤어진 후에, 그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하여 요셉의 집으로 갔으며, 그 후에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예수의 가족과 합류하기 위하여 베다니로 갔다. 다윗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세상에서의 소유물들을 처분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었으며,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들의 오빠 나사로를 만나기 위하여 떠난 여행에 동행하였다.

190:1.10 (2031.4) 이때로부터 일주일 정도 되었을 무렵, 요한 세베대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벳세다에 있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다. 예수의 첫 번째 남동생인 야고보는 자기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롯은 나사로의 자매들과 함께 베다니에 남아 있었다. 예수의 나머지 가족들은 갈릴리로 돌아갔다. 다윗 세베대는 예수의 막내 여동생인 롯과 결혼한 후인 6월 초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베다니를 떠나 필라델피아로 갔다.

제 2 장. 베다니에 나타나신 예수

190:2.1 (2031.5) 모론시아 부활이 있던 때로부터, 그의 영이 높은 곳으로 상승한 시간까지, 예수는 이 땅에 있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형체로 각각 19번 출현하였다. 그의 적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식별할 수 있는 형체로서의 그의 현시활동을 영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첫 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무덤에 있는 다섯 명의 여인들에게 이었다; 두 번째 역시 무덤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었다.

190:2.2 (2031.6)

세 번째 출현은 베다니에서 이 일요일 정오 무렵에 발생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예수의 첫 번째 동생인 야고보는 다윗의 메신저가 약 한 시간 전에 전해 준 소식을 마음 속 깊이 생각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부활한 빈 무덤 앞의 나사로의 정원에 서 있었다. 야고보는 자기 만형의 이 세상에서의 임무를 항상 믿으려고 하였지만, 예수의 활동에 오랫동안 접하지 못하였으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도들의 후반기 주장에 대해서는 깊은 의심에 빠져 있었다. 메신저가 가져온 소식 때문에 가족들은 모두 깜짝 놀라고 거의 혼동되었다. 야고보가 나사로의 빈 무덤 앞에 서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도착하였고, 이른 새벽 시간에 요셉의 무덤에서 가졌던 자신의 체험들을 그 가족들에게 흥분해서 이야기하였다. 그녀가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 다윗 세베대와 그의 어머니가 도착하였다. 당연히 릿은 이 보고를 믿었으며, 유다는 다윗과 살로메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것을 믿었다.

190:2.3 (2032.1)

그러는 동안, 그들은 야고보를 찾았으며 아직 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는 아직 무덤에서 가까운 정원에 서 있었으며, 그는 마치 누가 자기 어깨에

손을 대는 듯한 어떤 가까운 현존을 느꼈으며; 그가 돌아볼 때, 그는 자기 옆에서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이상한 형체를 보게 되었다. 그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으며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지도 못하였다. 그러자 그 이상한 형체가 이렇게 말하였다: “야고보야, 나는 왕국 봉사를 위하여 너를 부르려고 왔다. 네 형제들과 진지하게 하나가 되어 나를 따라오거라.”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을 들은 야고보는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맏형, 예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 대부분은 주(主)의 모른시아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그가 일단 그들과의 교통을 시작하게 되면, 그들 중의 거의 아무도 그의 음성을 인지하거나 혹 그렇지 않으면 그의 매력 있는 개인성을 정체성 확인하는 데에 거의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190:2.4 (2032.2) 예수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본 야고보는, 그는 무릎을 꿇으면서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형님”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예수는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정원을 거닐면서 거의 3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다; 지난날들의 체험들을 이야기하고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측하였다.

그들이 그 집에 가까이 이르자, 예수는 “야고보야, 내가 너희 모두를 함께 인사할 때까지 잘 있거라.”

190:2.5 (2032.3) 그들이 아직도 벳바게에서 야고보를 찾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는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 이렇게 소리쳤다: “내가 방금 예수를 보고 이야기하였으며,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눴다. 그는 죽지 않았다; 살아나셨다! 그는 내 앞에서 사라지시면서 ‘내가 너희 모두를 함께 만날 때까지 잘 있거라.’라고 말씀하였다.” 그가 거의 말을 마칠 무렵에 유다가 돌아왔으며, 그는 정원에서 예수를 만났던 체험을 유다를 위하여 다시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하였다. 야고보는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며, 다윗은 이렇게 소리쳤다: “그가 흥분한 여인들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다; 강심장의 남자들조차도 그를 보기 시작하고 있다. 나도 직접 그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190:2.6 (2032.4) 그리고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두 시 바로 전에 필사자가 인식하도록 예수의 네 번째 출현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으며, 이 때 그는 모두 20명에 이르는 자신의 지상에서의

가족들과 그들의 친구들 앞에서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 주(主)는 열려있는 뒷문에서 나타났으며 이렇게 말씀하였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으라. 한 때 육신으로 나와 가까이 지냈고 하늘의 왕국에서 나의 형제들과 자매들로서 친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의심할 수 있었던 말이나? 너희가 전심으로 진리의 빛을 따르기로 선택하기까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오랫동안 지체하고 있었느냐? 그러므로, 너희 모두는 아버지의 왕국에서 진리의 영광의 친교로 오라.” 그들이 놀라서 충격을 받았던 처음 상태에서 점차 회복되면서 그를 끌어안으려는 듯이 그를 향하여 움직이자, 그는 그들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190:2.7 (2032.5) 그들은 모두 그 도시로 달려가서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고 싶어 하였으나, 야고보가 그들을 제지하였다. 막달라 마리아만이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받았다. 야고보는 예수와 정원에서 대화를 나눌 때 그가 자신에게 말씀한 특별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론시아 방문에 대한 사실을 그들이 퍼뜨리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그러나

야고보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부활한 주(主)와 이 날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결코 더 이상 밝히지 않았다.

제 3 장. 요셉의 집에서

190:3.1 (2033.1) 사람들의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예수의 다섯 번째 모론시아 현시활동은, 같은 일요일 오후 4시 15분경에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 모여 있는 약 25명의 여자 신도들 앞에서 발생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출현이 이루어지기 불과 몇 분전에 요셉의 집에 돌아왔었다.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는 주(主)가 베다니에 나타났던 것을 사도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었다. 그러나 그가 마리아에게 그녀의 자매 신도들에게도 그 사건을 보고하지 말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었다. 따라서 마리아는 그 여인들 모두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예수의 가족들과 함께 베다니에 있을 때 방금 전에 발생했던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녀가 가슴 두근거리는 설명을 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고 장엄한 고요함이 그들을 덮었다; 그들은 바로 자기들 한 가운데에서, 부활한 예수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형체를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하였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으라. 왕국의 동료관계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로운 자와 속박 받는 자,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을 것이다. 또한 너희는 하늘의 왕국에서 하느님의 아들관계의 복음을 통하여 인류 해방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온 세계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부터 신자들이 신앙에 굳건히 서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소심하고 두려움에 가득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는 일과 아픈 자들을 돌보는 일을 잊지 말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는 땅 끝까지라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마친 후에, 그는 여인들이 자신들의 얼굴에 모습을 녹여내고 침묵 속에서 경배하는 동안,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190:3.2 (2033.2) 이때까지 다섯 번에 걸쳐 발생한 예수의 모론시아 출현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네 번을 입증하였다.

190:3.3 (2033.3) 오전 반나절이 지날 무렵에 메신저들을 파견한 결과로, 그리고 요셉의 집에서 있었던 예수의 출현에 대한 암시들의 무의식적인 누설로 인하여,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났다고 주장한다는 말이 도시에 두루 퍼졌다는 소식이 저녁

무렵에는 유대인 통치자들의 귀에까지 전해졌다. 산헤드린 회원들은 이 소문에 심각하게 자극을 받았다. 가야바는 안나스와 급히 의논한 후에, 그 날 저녁 8시에 모이도록 산헤드린 회의를 소집하였다. 누구든지 예수 부활을 언급하는 자는 회당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이 회의에서였다. 그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하자는 제안까지 있었다; 그러나, 실재적 공황에 가까운 혼란 속에서 회의가 해산되었기 때문에 이 제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와의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감히 생각했었다. 그들은 나사렛 사람과의 자신들의 실제 문제는 단지 시작이었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였다.

제 4 장. 그리스인들에게 나타나심

190:4.1 (2033.4) 4시 30분쯤 되었을 때, 플라비우스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곳에 모여 있는 약 40명의 그리스인 신자들에게 주(主)가 여섯 번째로 나타났다. 주(主)가 부활하였다는 보고를 듣고 토론하고 있을 때, 문들이 견고하게 닫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 가운데에서 현시하였으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으라.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유대인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모든 인류를 섬기기 위하여 왔었다. 내 아버지의 왕국에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으며; 너희는 모두 형제—하느님의 아들들—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 세계로 가서, 너희가 왕국의 대사들로부터 받아들였던 대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내가 신앙과 진리를 소유한 아버지의 아들들의 형제신분으로 너희와 동료관계에 있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신 후에 떠났으며, 그들은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저녁 내내 그 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경외와 두려움에 압도되어 용기를 내어 나서지 못하였다. 또한 이 그리스인들은 그 밤에 아무도 잠을 자지 못하였다; 주(主)가 다시 자기들을 방문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 일들을 의논하였다. 군인들이 예수를 체포하고, 유다가 입을 맞춤으로써 그를 배반할 때, 겟세마네에 있었던 그리스인들 대부분이 이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

190:4.2 (2034.1)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문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다는 보고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그 도시 전체가 흥분되어 매우 심하게 동요하게 되었다. 주(主)는 이미 자기 가족들과 여인들 그리고 그리스인들에게 나타났으며, 또한 얼마 안 있어 사도들

가운데에도 직접 현시되고 있었다. 산헤드린은 유대인 통치자들에게 이토록 갑자기 밀어닥친 이 새로운 문제들을 재빨리 심사숙고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는 사도들을 무척 생각하였지만, 자신이 그들을 방문하기 전에 그들끼리 몇 시간 동안 더 따로 떨어져서 진지한 반성과 사려 깊은 숙고를 하기를 바라셨다.

제 5 장. 두 형제들과 같이 걸어가심

190:5.1 (2034.2) 예루살렘 서쪽으로 약 7마일 떨어진 엠마오에, 목동인 두 형제들이 살았는데, 유월절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희생 제사와 예식 그리고 축제에 참여하였다. 형인 클레오파스는 예수를 부분적으로 믿었는데; 적어도 그는 나중에 회당에서 출교 당하였다. 그의 동생 야곱은 신자는 아니었지만, 주(主)의 가르침과 한 일들에 관하여 들었던 내용에 무척 흥미를 갖고 있었다.

190:5.2 (2034.3) 그 일요일 오후,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5시가 거의 되었을 무렵에, 이들 두 형제는 엠마오로 가는 길을 따라 터벅터벅 걸으면서, 예수에 관하여, 그의 가르침들과 한 일들 그리고 특별히 그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소문과 어떤 여인들이 그와

이야기하였다는 소문에 대하여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클레오파스는 이 소문들을 반신반의하면서 믿었지만, 야곱은 그 모든 사건들이 아마 가짜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이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의 모론시아 현시활동, 그의 일곱 번째 출현은 그들 옆으로 따라가시면서 같이 여행하였다. 클레오파스는 예수의 가르침을 종종 들었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나눈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그는 주(主)가 지금 자기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190:5.3 (2034.4) 예수는 그들과 같이 조금 걸어가신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때 그토록 진지하게 나눈 말들이 무슨 뜻이었느냐?”라고 말씀하였다. 예수가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잠시 서서 그를 보다가 매우 슬픈 표정을 지었다. 클레오파스가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주(主)는 “무슨 일들이냐?”라고 물었다. 클레오파스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이 이 일들에 관해서 알지 못한다면, 하느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과 행위에 큰 힘이 있는 선지자였던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문들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듣지 못한 유일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제들과 우리 통치자들이 그를 로마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가 이방인들의 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아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형에 처해진지 지금이 삼일 째인데, 어떤 여인들이 바로 오늘 새벽에 그의 무덤에 갔다가 그곳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하였고;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계속 우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두 사람이 무덤으로 달려갔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그리고 이 때 야곱이 자기 형의 말에 끼어들면서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190:5.4 (2035.1) 그들이 길을 계속 갈 때, 예수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참으로 진리를 더디게 깨닫는 자들이구나! 너희가 토론하던 것이 그 사람의 가르침들과

한 일에 관한 것이었다고 네가 나에게 말하였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가르침들에 대하여 더 익숙하니, 너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고 싶다. 그 예수가 자기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하느님의 아들들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진리에 의한 새로운 이 왕국에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형제신분의 교제를 나누는 영적 기쁨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추구해야만 한다고 항상 가르치셨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사람의 아들이 병 든 자와 고통 받는 자를 돌보시면서,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악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풀어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구원을 어떻게 선포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그 나사렛 사람이,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며, 자기의 적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자기를 죽이겠지만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이 구원의 날에 관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가난한 자들의 혼을 구하고 궁핍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라는 것과;

모든 나라들이 그를 찬미하리라는 것을 성서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한 해방자는 지치고 피곤한 땅
안에 있는 거대한 바위의 그림자처럼 되실 것이다. 그는 참
목자처럼 양 떼를 먹이실 것이며, 그 양들을 두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아서 친절하게 데리고 다니실 것이다.
그는 영적으로 눈이 먼 자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이고
절망에 사로잡힌 자를 충분한 자유와 광명의 세계로
해방시키실 것이다;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이 영원한
구원의 엄청난 빛을 볼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는 낙담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죄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며, 공포에 노예가 되고 악으로 묶인 자들을
해방시키실 것이다. 그는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슬픔과 비애 대신에 구원의 기쁨을 그들에게 수여하실
것이다. 그는 모든 나라들의 소망이 되실 것이며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영속하는 기쁨이 되실 것이다. 이 진리와
정의(正義)의 아들은 구원의 힘과 치유의 빛과 함께 세상에
우뚝 솟아나실 것이다; 자기 민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실
것이다; 잃었던 자들을 실제로 찾아서 구하실 것이다. 그는
연약한 자를 멸하지 않으실 것이며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육체에게 자기 영을 부어 주실 것이며, 이 진리의 영은 각 신자들 속에 영속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너희에게 전해 준 왕국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납득하지 못하느냐? 얼마나 엄청난 구원이 너희에게 임하였는지 깨닫지 못하겠느냐?”

190:5.5 (2035.2) 이 때 그들은 이 형제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가까이 도착하였다. 그들이 함께 걸어오는 동안 예수가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이후로 두 형제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들은 곧 두 형제가 살고 있는 초라한 집 앞에 도착하였고, 예수는 그들과 헤어져서, 가던 길을 계속 내려가시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함께 들어가 묵으시도록 억지로 그에게 권유하였다. 그들은 밤이 가까웠으므로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야 된다고 고집을 부렸다. 예수는 마침내 허락하였고,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즉시 같이 앉아 식사를 하였다. 그들은 그가 축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그에게 빵을 드렸으며, 그가 빵을 떼어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은 눈을 뜨고, 클레오파스는 자기들의 손님이 바로 그 주(主) 자신이심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가 “이 분이

주(主)이시다—”라고 말하였을 때, 모론시아 예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졌다.

190:5.6 (2036.1)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을 걸어오면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성서를 가르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동안, 우리 가슴이 속에서 불타는 듯했던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구나!”

190:5.7 (2036.2) 그들은 식사를 하기 위하여 멈출 수가 없었다. 그들은 모론시아 주(主)를 보았으며, 부활한 구원자에 대한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집에서 달려 나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190:5.8 (2036.3) 그 날 저녁 9시 경, 그리고 주(主)가 열 명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기 바로 전에, 흥분한 이 두 형제는 사도들이 있는 다락방으로 뛰어 들어갔으며, 자기들이 예수를 보았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고 증거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자기들에게 말씀한 모든 것과, 빵을 떼기까지 어떻게 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자기들이 식별하지 못하였는지를 설명하였다.

제 191 편 사도와 다른 영도자들에 출현

191:0.1 (2037.1)

부활의 일요일이 사도들의 삶에는 무척 고통스러운 하루였으며; 10 명의 사도들은 그 날 하루 대부분을 그 다락방 안에서 문을 꼭꼭 걸어 닫은 채로 지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밖으로 나갔다가 발견되어 산헤드린의 앞잡이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다. 도마는 혼자서 그의 걱정으로 벳바게에서 수심에 잠겨 있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남아 있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며, 그들의 논의에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191:0.2 (2037.2)

요한은 예수가 이미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관념을 하루 종일 떠받쳐주고 있었다. 그가 주(主)께서 자신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단언한 경우가 적어도 5번 이상, 그리고 셋째 날이라고 암시한 경우도 적어도 3번 이상 있었다는 것을 차례로 열거하였다. 요한의 태도는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특별히 그의 형제 야고보와 나다니엘에게 그러하였다. 요한이 그 무리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리지만 았았어도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191:0.3 (2037.3)

그들의 고립이 그들의 어려움과 많은 관계가 있었다. 요한 마가는 성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계속하여 그들에게 알려주었으며 성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새로운 소문들을 전해주었으나, 예수가 이미 나타났던 다른 신자 무리들로부터는 소식을 전해 받지 못하였다. 지금까지는 다윗의 메신저들로부터 친절한 봉사를 받았지만, 그들은 이제 부활의 소식을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신자 무리들에게 전하는 임무에 배속을 받았으므로 그곳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도들은 지난 여러 해 중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왕국의 관련사들에 대한 일일 정보에 대하여, 다윗의 메신저들에게 얼마나 많이 의존해 왔었는지 깨달았다.

191:0.4 (2037.4)

베드로는 본래의 특징적으로, 주(主)의 부활에 대하여 신앙과 의심 사이에서 이 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였다. 베드로는 예수의 시신이 증발해 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수의가 무덤 안에 남아 있던 장면을 머릿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살아나셨고 그 여인들에게 자신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라면, 왜 사도인 우리들에게는 보여주시지 못한단 말인가?”라고 베드로는 생각하였다. 베드로는 예수가 사도들 가운데의 그의

현존으로 자기들에게 오시지 않는 이유가, 그 날 밤 안나스의 안마당에서 그를 부인한 그가 사도들과 함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더욱 비탄에 잠기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는 그 여인들이 전해 준 “나의 사도들에게—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는 말로 위안을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소식으로부터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그가 그 여인들이 부활한 주(主)를 실제로 보고 들었다는 것을 믿어야만 했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안마당으로 나간 8시 조금 후까지, 그 날 하루 종일 신앙과 의심 사이에서 방황하였다. 베드로는 자기가 주(主)를 부인했던 것 때문에 예수가 오시지 못하는 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 사도들로부터 혼자 떨어져 있을 생각이었다.

191:0.5 (2037.5) 야고보 세베대는 처음에 모두 무덤으로 가 보자고 주장하였다; 그 신비스러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해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야고보의 주장에 대해서, 대중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그들을 말린 것은 나다니엘이었으며, 그는 이와 같은 때에 쓸데없이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는 예수의 경고를 그들에게 상기시킴으로써 그렇게 하였다. 정오 무렵에

야고보는 안정을 되찾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다렸다. 그는 거의 말이 없었다; 예수가 자기들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것에 무척 실망하였고, 주(主)가 개별존재들과 무리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191:0.6 (2038.1) 안드레는 이 날 거의 듣기만 하였다. 그는 당시의 상황 때문에 무척 당황하였고 필요 이상으로 의심하기는 하였지만, 적어도 동료 사도들을 인도하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어떤 자유로운 해방감을 누리고 있었다. 이러한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자기들에게 임하기 전에, 자신의 영도자관계로서의 짐을 주(主)가 덜어주신 것에 대하여, 그는 정말로 고마워하였다.

191:0.7 (2038.2) 비극적인 이 날 지루하고 지친 시간들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무리들에게 유일한 영향력을 끼치며 지켜준 것은, 나다니엘이 자주 제시한 그의 특징적인 철학적 조언이었다. 그가 끼친 영향은 실제로 그 날 하루 종일 열 명의 사도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주(主)의 부활에 대하여 믿는다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다든지 하는, 자기 의견을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그는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는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였음을 믿는 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져 갔다.

191:0.8 (2038.3) 시몬 젤로떼는 너무 낙심하여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 방구석에 있는 안락의자에 기대어 벽을 향하고 누워 있었다; 하루 종일 여섯 번 정도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왕국에 대한 그의 개념은 무너졌으며, 주(主)의 부활이 그 상황을 물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의 실망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었고 전체적으로 너무 심화되어 있어서 빨리 회복될 수 없었으며,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직면하여서도 마찬가지였다.

191:0.9 (2038.4) 기록하기는 이상하지만, 어느 때 말이 없던 빌립이 이 날 오후 내내 많은 말을 하였다. 오전 동안에는 거의 말이 없었지만, 오후에는 줄곧 다른 사도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베드로는 빌립의 질문을 종종 귀찮아했지만, 다른 사도들은 그의 질문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였다. 빌립은 예수가 실제로 무덤에서 일어났다면,

그의 몸에 십자가형의 육체적인 흔적이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특별히 알고 싶어 하였다.

191:0.10 (2038.5) 마태는 매우 혼동이 되었다; 동료들의 토론에 귀를 기울였지만 앞으로 닥쳐올 자신들의 재정 문제를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예수의 예정된 부활을 개의치 않고, 유다는 떠나 버렸으며, 다윗은 아무 절차도 없이 자금을 자기에게 넘겼고, 자기들에게는 이제 아무도 지도할 사람이 없었다. 마태는 부활에 관한 그들의 논쟁에 대하여 심각한 고려에 생각이 미치기도 전에, 주(主)의 얼굴을 마주하고 보았다.

191:0.11 (2038.6) 알패오 쌍둥이는 이러한 심각한 토론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습관적인 봉사에 여념이 없었다. 빌립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들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하면서 두 사람의 태도를 "우리는 부활에 관해서 잘 납득하지 못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주(主)와 대화를 나눴다는 말을 하였다는 데, 우리는 어머니를 믿는다."는 말로 표현하였다.

191:0.12 (2038.7) 도마는 자포자기하는 우울증이라는 그의 전형적인 주문중의 하나에 걸려 빠져있었다. 그는 잠을 잔

시간을 제외하고는 동산들을 거닐면서 보냈다. 그는 동료 사도들과 다시 함께 있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혼자 있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하였다.

191:0.13 (2038.8) 주(主)께서 사도들에 대한 첫 번째 모론시아 출현을 미루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그들이 그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에, 그가 아직 육신으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시간을 주시고자 하였다. 주(主)는 자신이 그들 모두에게 현시되기 전에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어려움들과 싸워 이기게 되기를 바라셨다.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이 처음으로 나타나실 때, 도마가 그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하였다. 요한 마가는 그 일요일 이른 아침, 11시 경에 도마가 벳바게에 있는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어 그렇다는 말을 사도들에게 전하였다. 나다니엘이나 아니면 누구든지 다른 두 사도들이 그에게 갔었다면, 도마는 이 날 언제든지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실제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전 날 저녁에 떠날 때 취한 자기 행동 때문에, 그리고 그는 자존심이 너무 강하였으므로 자기 스스로 자진하여 그렇게 빨리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는 다음 날까지도 무척 우울하였으므로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적어도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하였다. 사도들은 그를 기다렸고, 반면에 그는 사도들이 자기를 찾으러 와서 같이 돌아가자고 청해 주기만을 바랬다. 그리하여 도마는 그 다음 토요일 저녁, 어둠이 깔린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벳바게로 와서 자신을 데리고 연관-동료들에게 돌아갈 때까지 그들로부터 떨어져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가 그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후에 그들이 즉시 갈릴리로 가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도마 없이는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제 1 장. 베드로에게 나타나심

191:1.1 (2039.1) 예수가 마가의 집에 있는 정원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 일요일 저녁 8시 30분경이었다. 이것은 그의 여덟 번째 모론시아 현시활동였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主)를 부인한 이후로 죄의식과 의심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지내왔다. 토요일과 이 일요일 내내,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사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는 유다의 숙명에 몸서리를 쳤으며,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역시 주(主)를

배반하였다고 생각하였다. 만일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실제로 살아났다면, 자기가 사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실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 날 오후 내내 하였다. 낙심한 사도가 꽃밭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러한 기분과 혼의 상태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었다.

191:1.2 (2039.2) 그가 안나스의 현관 앞을 지나치면서 주(主)의 사랑스런 모습을 베드로가 생각하고, 그리고 빈 무덤에서 달려 온 여인들이 그 날 아침 일찍 자신에게 전해 준 엄청난 소식, “내 사도들에게—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라는 말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그가 이 자비의 상징들을 심사숙고하였을 때, 그의 신앙은 의심을 극복하기 시작하였으며, 똑바로 서서 주먹을 불끈 쥔 채로 이렇게 소리 질렀다: “나는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며; 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을 때, 그의 앞에 한 남자의 형체가 갑자기 나타났으며, 친숙한 음성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베드로야, 적이 너를 노렸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네가 나와의 관계를 부인하였던 것은 가슴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으므로; 네가 요청하기도 전에 너를

용서하였지만; 이제 너는 흑암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준비를 하는 동안, 그 때의 괴로움과 네 자신에 관하여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왕국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일에 더 이상 연연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영적 무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근심하여야 한다. 시몬아 새로운 날의 전투, 사람의 본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불신들과 영적 무지와 투쟁에 대비하거라.”

191:1.3 (2039.3) 베드로와 모론시아 예수는 정원을 같이 걸으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에 관하여 거의 5분 동안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주(主)는 “베드로야, 내가 너와 네 형제들을 같이 만날 때까지 잘 있거라.”라고 말하면서, 그가 보는 앞에서 사라졌다.

191:1.4 (2039.4) 베드로는 부활한 주(主)와 자신이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이 실현된 것과 자신이 아직도 왕국의 대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 동안 잠겨 있었다. 그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에게 훈계하는, 영광된 주(主)의 음성을 방금 들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가슴 속에 솟아오르면서, 동료 사도들이 있는 다락방으로

뛰어 올라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흥분하여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내가 주(主)를 보았다; 그는 정원 안에 계셨다. 그와 대화를 나누었으며, 나를 용서해 주셨다.”

191:1.5 (2040.1) 그 정원에서 예수를 보았다는 베드로의 선언은 그의 동료 사도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으며, 그들이 자신들의 의심을 포기하려고 할 때 안드레가 일어나서 자기 동생의 말에 의해 너무 영향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안드레는 베드로가 전에 실체가 아닌 것들을 보았던 사실을 암시하였다. 주(主)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다고 베드로가 주장하였던 갈릴리 바다에서의 그 날 밤의 환상을 안드레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을 마음에 두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도록 말하였던 것이다. 시몬 베드로는 자기 형의 암시에 무척 상처를 받았으며 즉시 풀이 죽어서 침묵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쌍둥이 형제들은 베드로에게 그들의 깊은 공감을 말했으며, 그에게 다가가서, 자기들의 어머니도 역시 주(主)를 보았다는 사실을 거듭 말하면서 자기들은 그의 말을 믿는다고 위로하였다.

제 2 장. 사도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심

그 날 저녁 9시가 조금 지나고, 클레오파스와 야곱이 떠난 후에, 알패오 쌍둥이들은 베드로를 위로하고 있었으며, 나다니엘이 안드레에게 충고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열 명의 사도들이 그 다락방에 모두 모여서 붙잡혀 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모든 문들을 단단히 잠그고 있을 때, 모론시아 형제의 주(主)가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내가 나타났을 때, 너희가 마치 혼을 본 듯이 왜 그렇게 놀라느냐?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들에 대하여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제들과 통치자들이 나를 죽도록 인계하리라는 것과, 바로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는 것, 그리고 셋째 날에 내가 살아나리라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무슨 이유로 너희 모두는 그 여인들과 클레오파스와 야곱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의 설명에 대해서도 논쟁하며 의심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언제까지 내 말을 의심할 것이며 내 약속을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 지금 너희가 나를 실재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는 믿겠느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아직도 여기에 있지 않다. 너희가 다시 함께 모였을 때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무덤에서 살아난 것을 너희

모두가 확실히 알고 난 후에, 갈릴리로 가라. 하느님을 믿고; 서로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의 왕국을 위한 새로운 봉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갈릴리로 갈 준비가 될 때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예루살렘에 머무를 것이다.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191:2.2 (2040.3) 모론시아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을 마친 후,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옆드려서 하느님께 찬양하였으며 사라지신 주(主)를 경배하였다. 이것은 주(主)의 아홉 번째 모론시아 출현이었다.

제 3 장. 모론시아 창조체들과 함께

191:3.1 (2040.4) 다음 날인 월요일, 그 때 유란시아에 있었던 모론시아 창조체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셨다. 주(主)가 모론시아-전환을 체험할 때, 백만이 넘는 모론시아 감독들과 연관-동료들이 사타니아의 일곱 맨션세계들로부터 다양한 계층 속에 있는 전환기의 필사자들과 함께 유란시아에 와 있었다. 모론시아 예수는 이 훌륭한 지능존재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 그는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의 감독들로부터는 거주민이

사는 사타니아 세계들의 필사자들이 모론시아 구체들의 체계를 통과하는 것과 같이 모론시아 전환의 일생에 대하여 배우셨다.

191:3.2 (2041.1) 그 월요일 자정 무렵에 주(主)의 모론시아 형체는 모론시아 진보의 두 번째 단계로 전환되기 위하여 조절되었다. 이 세상에 있는 그의 필사자 자녀들에게 다음번에 나타났을 때, 그것은 두 번째 단계의 모론시아 존재로서 이었다. 모론시아 생애에 있어서 주(主)가 진보해 가함에 따라, 필사자의 그리고 물질적인 눈에 주(主)를 가시화(可視化)시키는 일이, 모론시아의 지능존재들과 변환을 담당한 그들의 연관-동료들에게 점점 더 어렵게 되었다.

191:3.3 (2041.2) 예수는 4월 14일 금요일에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셨고; 네 번째 단계는 17일 월요일에; 다섯 번째 단계는 22일 토요일에; 여섯 번째 단계는 27일 목요일에; 일곱 번째 단계는 5월 2일 화요일에; 7일 일요일에는 예루셈 시민의 단계로; 14일 일요일에는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의 포옹에 들어가셨다.

191:3.4 (2041.3) 이전에 여러 차례 이루어진 증여들과 연결되어, 별자리의 본부들에 머무르는 단계로부터, 초우주의 본부들에 대한 업무에 이르기까지 또 그것을 거쳐서,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총만한 일생을 이미 체험하였으므로, 이 방법으로 네바돈의 미가엘은 우주 체험에서의 자신의 봉사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네바돈의 창조자 아들은 그의 일곱 번째이며 마지막인 우주 증여를 실제로 끝내시고 만족스럽게 완결하신 것은 바로 이 모론시아 체험들에 의해서였다.

제 4 장. 열 번째 나타나심(필라델피아에서)

191:4.1 (2041.4) 필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나타나신 예수의 열 번째 모론시아 현시활동은 4월 11일 화요일 8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에 필라델피아에서 발생하였으며, 그곳에서 아브너와 나사로 그리고 70인의 전도 대원들 중 50명 이상이 포함된 약 150명에 이르는 그들의 연관-동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예수의 십자가형과, 최근에 다윗의 메신저가 전해 준 부활에 대한 보다 최근의 소식에 대해 토의하기 위하여, 아브너에 의해 소집되었던 회당에서의 특별 회의가 막 시작되었을 무렵에 이 출현이 발생하였다. 부활한 나사로가 이제 이 신자들 무리의 일원(一員)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보고를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별로 어렵지 않았다.

191:4.2 (2041.5) 회당에서의 회의가, 같이 단상(壇上)에 서있는, 아브너와 나사로에 의해 막 시작되었는데, 그 때 객석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주(主)의 형체를 보았다. 아브너와 나사로 사이에서 처음 나타났으므로 그들은 그를 보지 못하였으며, 그는 그곳에서 걸어 나와서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하였다:

191:4.3 (2041.6)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것과, 오직 하나의 왕국 복음—사람들이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다. 너희가 그 복음에 충성하는 것에 기쁨을 향유하고 있듯이, 그렇게, 형제들을 위하는 새롭고도 더욱 큰 사랑이 너희 가슴 속에서 밖으로 흘러나도록 해달라고 진리의 아버지께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리스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페르시아인 이든지 에티오피아인이든지,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는 너희 모든 형제들과 납득하는 동정심과 형제와 같은 애정을 가지고 사귀라. 요한은 앞서서 왕국을 선포하였고; 너희는 권능으로 복음을 전도해오고 있다; 그리스인들은 이미 좋은 소식을 가르치고 있다; 나는 영적 암흑 속에 앉아 있는 자신의 동료들에 대한 깨우침에 것처럼 사심-없이 삶을 바치는 모든 내 형제들의 혼속에 진리의 영을 곧 보내 줄 것이다. 너희들 모두는 빛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필사자의 의심과 인간의 편협성으로 오해하는 장애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 만일 너희가 신앙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을 사랑하도록 고상해졌다면, 널리 퍼지는 신앙의 가족 안에서 믿음의 동료인 그들도 똑같이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억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대로, 그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들인 것을 알 것이다.

191:4.4 (2042.1) "그러니 온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서로 형제이고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의 이 복음을 모든 나라들과 족속들에게 전파하고, 인류의 서로 다른 종족들과 민족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항상 지혜롭게 하라. 너희가 이 왕국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모든 나라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거저 나눠주어야 할 것이다. 시대들이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악한 세력의 저항을 두려워 마라. 그리고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191:4.5 (2042.2) 그가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였을 때, 그는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각각의 경우에 그를 본 사람들의 숫자를 비교해 볼 때, 500명 이상의 신자들이 동시에 그를 보았던, 갈릴리에서의 출현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필라델피아에서의 이 무리들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191:4.6 (2042.3)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도들은 도마의 감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반면에, 필라델피아의 이 신자들은 나사렛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전파하며 나아갔다.

191:4.7 (2042.4) 다음날인 수요일에, 예수는 자신의 모론시아 동행자들과 함께 줄곧 같이 보내셨으며, 오후 반나절 동안에는 놀라시아덱의 별자리 전체에서 거주민이 사는 구체들의 각 지역 체계의 맨션세계들로부터 방문한

모론시아 대표자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자기들의 창조자를 자신들의 우주 지능 계층의 하나로서 알게 된 기쁨을 향유하였다.

제 5 장. 사도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심

191:5.1 (2042.5) 도마는 올리브 산 근처의 동산들 속에서 혼자 고독한 한 주일을 보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시몬의 집에 있는 사람들과 요한 마가만을 만났다. 두 사도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집합 장소인 마가의 집으로 그를 데려간 것은 4월 15일 토요일 9시 경이었다. 도마는 다음 날 주(主)께서 여러 번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베드로가 그들을 감동시켜서, 마치 그들이 주(主)를 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나다니엘이 그를 설득하였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습관적인 깊은 의심과 연관된 감정적인 고집이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마음 상태에 덧붙여서, 그들로부터 도망쳐 버렸던 자신에 대한 분함이 있었고, 도마 자신도 충분히 납득할 수 없는 고립된 상황이 동시에 발생되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 연관-동료들로부터 떠나, 혼자 가버렸다가, 지금은 그들에게 돌아와 같이 있지만, 그는 무의식중에 불일치하는 태도를 나타내려고 하였다.

그는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양보하기를 싫어하였다.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남들의 이목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을 실제로 좋아하였다; 모든 연관-동료들이 자기를 설득하고 생각을 돌리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무의식적인 만족을 얻고 있었다. 그는 지난 일 주일 내내 그들이 보고 싶었으며, 그들의 변함없는 친절에서 큰 만족을 느꼈다.

191:5.2 (2042.6) 그들은 오후 6시 조금 지나서 저녁 식사를 할 때, 도마의 한쪽 옆에는 베드로가 앉고 다른 쪽에는 나다니엘이 앉아 있었는데, 의심 많은 그 사도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주(主)를 보고 내 손가락을 못 자국에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을 것이다.” 문들이 견고하게 닫혀있고, 그들이 그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모론시아 주(主)가 식탁 모서리에 갑자기 나타났으며, 바로 도마 앞으로 가서 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191:5.3 (2043.1) “평화가 너에게 있으라. 너희들 모두 모여 있을 때 내가 다시 나타나서, 온 세계로 나가 이 왕국 복음을 증거하라는 임무를 하달하려고, 내가 일주일 내내

머무르고 있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 하겠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아버지를 나타낸 것처럼, 너희는 신성한 사랑을 나타내되, 말로 만이 아니라 너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혼을 사랑하라고 너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보낸다. 너희는 다만 하늘의 기쁨을 전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신앙을 통하여 하느님의 선물로 영원한 삶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신성한 생명의 영적 실체들도 보여주어야 한다. 너희가 신앙을 소유하고, 저 높은 곳으로부터 힘,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곳 잠겨 있는 문들 뒤에서 너희의 빛을 숨기지 말라: 너희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온 인류에게 알려라. 너희가 지금은 두려움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체험의 사실들로부터 피하고 있지만, 너희가 진리의 영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하느님의 왕국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새로운 체험을 위하여 용감하고 기쁘게 나아가라. 너희는 전통주의의 권위에 의한 거짓된 보호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체험의 최극 실체들 속에 있는

사실들과 진리 그리고 신앙의 권위에 의한 새로운 계층으로 옮겨가는 충격에서 회복되는 동안, 이곳과 갈릴리에 잠시 동안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세계를 향한 너희의 사명은 내가 너희들 속에서 하느님을-계시하는 일생을 살았다는 그 사실 위에;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는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사람들 속에서 살게 될 일생 속에서—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실재적이고 살아있는 체험— 이루어질 것이다. 신앙이 너희 빛을 세상에 비취게 하라; 진리의 계시가, 전통으로 인하여 멀어 있는 눈을 뜨게 하라; 너희의 사랑으로 하는 봉사가, 무지로 인하여 발생한 선입관을 효과적으로 부술 수 있게 하라. 깊이 납득하는 동정심과 사심-없는 헌신으로 너희 친구들에게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너희는 아버지 사랑의 구원의 지식으로 그들을 인도하라. 유대인들은 선(善)을 찬양한다; 그리스인들은 아름다움(美)을 칭송 한다; 힌두인 들은 헌신을 강조한다; 먼 옛날의 금욕주의자들은 존경을 가르쳤다; 로마인들은 충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내

제자들에게 일생, 육신으로 너희의 형제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일생을 요구한다.

191:5.4 (2043.2) 그렇게 말씀을 마친 주(主)는 도마의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그리고 나를 보고 내 손에 있는 못 자국 속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 너, 도마야, 이제는 내가 나를 보았고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너희들에게도 임할 그 형체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 손에서 내가 못 자국들을 보지 못하겠지만, 네 형제들에게 이제는 무엇이라고 말하려고 하느냐? 네가 그토록 완강하게 믿지 않을 때에도 이미 네 가슴 속으로는 네가 믿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네가 진리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도마야, 네 의심들은 무너지려는 그 순간에, 항상 아주 완강하게 버티려고 한다. 도마야, 나는 너에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권한다.—그리고 나는 네가 전심으로 믿을 것을 알고 있다.”

191:5.5 (2043.3)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모론시아 주(主)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믿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主)시여!”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예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도마야 너는 나를 실제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들 속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필사자의 귀로 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게 되는 자들이 복되다.”

191:5.6 (2043.4) 그리고 나서 주(主)의 형체는 식탁 윗자리 쪽으로 가셔서 그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제 너희 모두는 갈릴리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곧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후에 그는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191:5.7 (2044.1) 열 한 사도들은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는 사실을 이제 충분히 납득하게 되었으며, 다음 날 매우 이른 아침, 날이 밝기 전에 그들은 갈릴리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제 6 장. 알렉산드리아에 나타나심

191:6.1 (2044.2) 갈릴리를 향하여 길을 떠난 열 한 명의 사도들이, 여행 목적지에 거의 도착되었을 무렵인, 4월 18일 화요일 저녁 오후 8시 30분 경, 예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단을 비롯하여 80 여명의 다른 신자들에게 나타났다. 이것은 주(主)가 모론시아 형태로 나타나신 12번째 사건이었다. 예수는 다윗의 메신저가 십자가형에 대하여 보고를 마칠

때에 이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 앞에 나타났다. 이 메신저는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 사이를 연계식으로 달리는 메신저들 중에서 다섯 번째 사람이었으며, 그 날 오후 늦게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였고, 그가 소식을 로단에게 전해주었을 때, 그 메신저로부터 이 비극적인 말을 직접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자들을 모두 소집하자는 결정이 내려졌었다. 8시쯤 되어서, 부시리스의 나단이라는 이 메신저는 무리들 앞으로 나와서, 자기 앞사람으로부터 들은 모든 이야기를 그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였다. 나단은 그의 감동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한 다윗은 주(主)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였다는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확언하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나단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모론시아 주(主)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곳에 나타났다. 그리고 나단이 자리에 앉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191:6.2 (2044.3) “평화가 너희에게 있으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어 세우시려는 것은 한 민족이나 국가 또는 특정한 무리의 선생들이나 설교자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 왕국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자유로운 자나 숙박 받는 자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에게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육신으로 사는 그 삶들을 통하여 이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새롭고도 놀라운 애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는 새롭고도 놀라운 헌신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열렬하게 그들을 섬기는지를 그들이 보게 될 때, 그들은 너희가 하늘의 왕국의 신앙의 친구들이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들도 영원한 구원을 찾기 위하여, 너희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을 따라가고자 할 것이다.

191:6.3 (2044.4)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 모두는 암흑 속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부름 받았다. 이 왕국 복음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다; 단지 사제들의 역할에만 맡겨지지 않을 것이다. 곧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보라 내가 시대들이 끝나는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191:6.4 (2044.5)} 주(主)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이 신자들은 그 날 밤 내내 그곳에 함께 남아서, 왕국을 믿는 자들로서의 체험들을 서로 이야기하였고, 로단과 그의 연관-동료들의 많은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는 것을 믿었다. 이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다윗의 전령이 자신이 전해 준 소식에 대하여 그들이 “예, 우리는 그를 보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저께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는지 상상해 보라.

제 192 편 갈릴리에서의 출현

^{192:0.1 (2045.1)} 사도들이 갈릴리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떠날 때까지 유대인 영도자들은 아무 반응 없이 침묵을 지켰다. 예수가 오직 왕국을 믿는 그의 가족들에게만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들이 숨어 있었고 대중을 위한 전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통치자들은 복음 운동이 결국 효과적으로 박멸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그들은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소문이 점점 더 퍼져나가는 것 때문에 당황하기는 하였지만, 예수의 추종자들이 그의 시신을 옮겨버렸다는 이야기를, 뇌물을 받은 경비병들이 퍼뜨림으로써, 그러한 모든 소문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믿었다.

192:0.2 (2045.2) 이때부터, 박해의 물결이 밀어닥침으로써 사도들이 흩어질 때까지,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사도 대원들의 우두머리로 인지되었다. 예수는 그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적이 없었으며, 그의 동료 사도들도 공식적으로 그를 그러한 책임 있는 위치에 선출하지 않았지만; 그는 아무 이의 없이, 그리고 그가 우두머리 설교자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고수하였다. 이때부터 대중 설교는 사도들의 주요 업무가 되었다. 그들이 갈릴리에서 돌아온 후에, 유다 대신 선택한 맛디아가 그들의 회계원이 되었다.

192:0.3 (2045.3) 그들이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있었던 그 주간 동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 머물고 있는 여 신도들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192:0.4 (2045.4) 월요일 아침 일찍 사도들이 갈릴리로 떠날 때, 요한 마가도 뒤 따라 갔다. 그는 도시를 빠져나갈 때까지 뒤를 따라 가다가, 베다니를 훨씬 지나간 후에는, 그들이 자기를 되돌려 보내지 않으리라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대담하게 그들과 섞여서 걸어갔다.

192:0.5 (2045.5) 사도들은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주(主)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여러 번 쉬었기 때문에, 수요일 아주 늦은 밤에서야 벳세다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모두 잠이 깨어, 아침 식사를 나눌 준비를 한 것은 목요일 정오 무렵이었다.

제 1 장. 호수 옆에서 나타나심

192:1.1 (2045.6) 4월 21일 금요일 아침 6시 경에, 벳세다에서 늘 배를 대어두던 해변에, 열 명의 사도들이 탄 배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들에게 모른시아 주(主)가 13번째로 나타났으며, 갈릴리 지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192:1.2 (2045.7) 세베대의 집에서 사도들이 대기하면서 목요일 오후와 초저녁을 보낸 후에,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고 제안하였다.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제안하였을 때, 사도들 모두가 동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였다. 그들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체험들, 예루살렘에서 아주 최근에 자기들에게 생긴 일들을 이야기하였으므로, 고기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날이 밝아오자, 그들은 벳세다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그들은 해변에 가까이 왔을 때, 해변에 배를 대어 두는 곳 가까이에서 어떤 사람이 모닥불 옆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요한 마가일 것이며, 고기를 잡아 돌아오는 자신들을 환영하기 위해 그곳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해변에 가까이 가면서, 자기들이 실수하였음을 알게 되었다—요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키가 컸다. 해변에 있는 그 사람이 주(主)이실 것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었다. 공포와 배반과 죽음에 비극적으로 관계적-연합된 예루살렘의 밀폐된 공간으로부터 멀리 떠나, 그들과 초기에 함께 하였던 그 현장 한 가운데에서, 그리고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야외에서 주(主)가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를 그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였다. 만일 그들이 갈릴리로 가면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였으며, 그 약속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192:1.3 (2046.1) 그들이 닻을 내리고, 물가로 나가기 위하여 작은 배를 준비하려고 할 때, 해변에 서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여보시오, 무엇을 좀 잡았소?”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그들이 “아니요”라고 대답하자, 그가 다시 말하였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시오,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지도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이신 것을 알지 못한 채, 한 마음이 되어 지도 받은 대로 그물을 던졌으며, 즉시 그물이 가득 차서, 거의 들어 올릴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그 때 요한 세베대는 고기가 많이 들어있는 그물을 보는 순간 언뜻 생각이 나서, 자기들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주(主)이신 것을 알아차렸다. 이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르자, 그는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서 “저분이 주(主)이시다.”라고 속삭였다. 베드로는 항상 경솔하게 행동하고 성급하게 일을 시작하였으므로; 요한이 자기 귀에 속삭인 이 말을 듣자, 주(主) 옆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가려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형제들은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작은 배를 타고 그의 뒤를 쫓아서 해변으로 나왔다.

192:1.4 (2046.2) 이 때 요한 마가가 일어나, 고기가 많이 들어 있는 그물을 끌고 해변으로 나오고 있는 사도들을 보자, 그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해변으로 달려갔으며; 그는 10 사람이 아니라 11 사람이 해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은 부활한 예수일 것이라고 추측하였으며, 열 명의 사도들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옆에 서 있을 때, 그 소년은 주(主)께로 달려가서,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주(主)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인사할 때 “평화가 너희에게 있으라.”라고 말씀하였던 것과는 달리, 요한 마가에게 평상시와 똑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였다: “그래, 요한아, 너를 다시 만나서 반가우며, 우리가 편안히 만날 수 있는 안전한 갈릴리에 있게 되어 기쁘다. 요한아, 우리와 함께 남아서 아침을 먹도록 해라.”

192:1.5 (2046.3) 예수가 소년에게 말하는 동안, 열 명의 사도들은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고기가 들어 있는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 때 예수가 말씀하였다:

“너희가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라. 이미 모닥불과 많은 빵이 준비되어 있다.”

192:1.6 (2046.4) 요한 마가가 주(主)께 경의를 표하는 동안, 베드로는 해변에 숯불이 타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잠시 충격을 받았다; 그 광경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가 주(主)를 부인하였던 안나스의 안마당에서 한 밤중에 타오르던 그 숯불이 생생하게 기억났으나, 그 생각을 떨쳐 버리고, 주(主)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서 “나의 주님, 나의 주(主)여!”라고 소리쳤다.

192:1.7 (2046.5)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는 동료들과 합세하였다. 그들이 잡은 고기를 땅에 풀어놓고 세어 보았을 때 큰 고기만 153 마리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물고기를 잡은 또 다른 기적이라고 부르는 실수를 다시 저질렀다. 이 에피소드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주(主)가 선함지식을 실행에 옮기도록 한 것뿐이었다. 그는 물고기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아셨으며 따라서 사도들에게 그물을 그곳에 던지라고 지도하였던 것이다.

192:1.8 (2047.1)

예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제 너희들 모두 이리로 와서 아침 식사를 하여라. 내가 너희와 이야기하는 동안, 쌍둥이 형제들도 여기 앉아 있어라; 요한 마가가 고기를 준비할 것이다.” 요한 마가는 알맞은 크기의 생선 일곱 마리를 가져왔고, 주(主)가 그것들을 불 위에 올려놓았으며, 잘 익은 후에, 그 소년이 그것들을 열 명의 사도들에게 배분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빵을 떼어 요한에게 주었고, 그는 시장한 사도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었다. 그들이 음식을 모두 받은 후에, 예수는 요한 마가에게 앉으라고 지시하고 그 소년에게 손수 물고기와 빵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예수는 그들과 이야기하였으며 바로 이 호수 주변과 갈릴리에서 가졌던 자기들의 많은 체험들을 회상하였다.

192:1.9 (2047.2)

이것은 사도들 전체에게 자신을 현시하신 세 번째 경우였다. 예수가 처음에 그들에게 아무 고기든지 잡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 의심쩍게 여기지 않았던 것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 바닷가로 나올 때, 다리키아의 어물상(魚物商)들이 햇빛에 말릴 싱싱한 고기를 직접 구입하려고 그렇게 말을 걸어오는 체험을 늘 하였기 때문이었다.

192:1.10 (2047.3) 예수는 열 명의 사도들과 요한 마가와 함께 한 시간 이상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리고 나서 그들을 두 명씩 나누어 같이 이야기하며 해변을 거니셨다—그러나 처음에 두 사람씩 짝지어 내보내어 가르치게 하였을 때와 동일한 사람들끼리 짝을 짓게 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에는 열 한 사도들이 함께 왔지만, 시몬 젤로떼는 갈릴리에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낙담하여, 벳세다에 도착한 후에는 형제들을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192:1.11 (2047.4) 예수는 이 날 아침 그들을 떠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누구든지 자진하여 두 사람이 시몬 젤로떼에게 가서 그 날 당장 그를 데리고 돌아오도록 지도하였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렇게 하였다.

제 2 장. 사도들 두 사람씩과 이야기하심

192:2.1 (2047.5) 그들이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다른 사람들은 모닥불 옆에 남아있는 동안, 예수는 베드로와 요한을 손짓으로 부르시고 그를 따라 함께 해변을 거닐자고 하였다. 함께 걸으면서 예수는 요한에게 “요한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 그리고 요한이 “예,

주(主)여,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자 주(主)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요한아, 그렇다면, 참지 못하는 네 성격을 버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임을 증명하는 일에 네 일생을 바쳐라.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찾아나서라고 재촉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영적 선(善)의 원조(元祖)이며, 참되고(眞) 아름다운(美) 것의 본질요소이다.”

192:2.2 (2047.6) 그리고 나서 예수는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 베드로는 “주님, 제가 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어린 자들에게의 사명활동에 게을리 하지 마라. 염려하거나 편애하지 말고 복음을 전도하라: 하느님은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라. 내가 너를 섬긴 것처럼, 너는 네 동료들을 섬기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네 동료들을 용서해라. 체험이 너에게 명상의 가치와 지적 반영의 힘을 가르치도록 만들라.”

192:2.3 (2047.7) 조금 더 걸어간 후에, 주(主)는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네가 실제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시몬은 “예,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였다: “그렇다면 내 양을 잘 보살펴라. 양 무리들에게 선하고 참된 목자가 되어라. 너에 대한 그들의 신임을 배반하지 마라. 불시에 허를 찔려 적의 손아귀에 붙잡히지 말라. 항상 경계하라—살펴보고 또한 기도하라.”

192:2.4 (2047.8) 몇 발자국 더 걸어간 후에, 예수는 베드로를 보시며 세 번째로 “베드로야,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마치 그를 믿지 못하는 듯한 주(主)의 태도에 약간 슬퍼하면서, 적지 않은 감정으로 말하였다.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니, 제가 실제로 그리고 진실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내 양을 먹여라. 그 무리를 버리지 마라. 너의 모든 동료 목자들에게 본이 되고 감화를 주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양 무리를 사랑하고, 네 번영을 위하여 내가 생명을 바친 것처럼 그들의 번영을 위하여 너 자신을 바쳐라. 그리고 끝까지 나를 따라와라.”

192:2.5 (2048.1) 베드로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자신이 그를 계속하여 따라가야만 한다는—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요한을 가리키며 예수께 “만일 제가 당신을 따라간다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는 베드로가 자신의 말을 잘못 납득한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였다: “베드로야, 네 형제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라. 만일 네가 떠난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러 있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만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192:2.6 (2048.2) 이 말이 형제들 사이에 두루 퍼졌고, 왕국이 영광과 힘으로 이루어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희망한 것처럼, 주(主)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가 말سم한 것으로 이것을 받아들였다. 시몬 젤로떼로 하여금 봉사로 돌아오게 하여, 그를 계속 일하도록 만든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예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었다.

192:2.7 (2048.3) 그들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돌아왔을 때, 예수는 안드레와 야고보와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셨다. 조금

걸어간 후에 예수가 안드레에게 “안드레야,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물었다. 사도들의 전임 우두머리였던 그는 예수가 그러한 질문을 하자 똑바로 서서 “예, 주(主)여, 저는 결단코 당신을 신뢰하며, 제가 그러하다는 것을 당신도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안드레야, 만일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네 형제들을—베드로까지도—더욱 신뢰하여라. 나는 한 때 형제들에 대한 너의 지도력을 신뢰하였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기 위하여 너를 떠나지만, 너는 다른 형제들을 신뢰해야만 한다. 처참한 박해로 인하여 네 형제들이 멀리 흩어지게 된 후에, 내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감당하기에는 체험으로 분별화되지 않은 그러한 너무 무거운 짐을 그들이 그에게 지우면, 그에게 숙고하는 현명한 조언자가 되어 주어라. 그리고 그런 후에 신뢰하는 것을 계속하라, 나는 너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 땅을 두루 거치면, 나에게 오게 될 것이다.”

192:2.8 (2048.4) 그리고 나서 예수는 야고보를 향하여 “야고보야,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물었다. 그리고 물론 야고보는 “예, 주(主)여,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야고보야, 만일 네가 나를 더욱 신뢰한다면, 네 형제들에 대해서 좀더 참을성을 가지거라. 만일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그것이 네가 믿는 형제들에게 친절하도록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네 말들과 행동들의 결과들을 심사숙고하는 것을 배워라.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해라. 영의 평온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인내심을 기르도록 하여라. 희생물의 잔을 마셔야 하는 시간이 도래할 때, 살아있는 신앙과 함께, 이 은혜들이 너를 지켜 줄 것이다. 그러나 결코 당황하지 말라; 네가 이 땅을 지나면, 너도 와서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192:2.9 (2048.5) 예수는 그 다음에 도마와 나다니엘과 이야기하였다.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나를 섬기느냐?”라고 물었다. 도마는 “예, 주님, 저는 지금 그리고 항상 당신을 섬깁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만일 네가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섬겨왔던 것처럼, 육신의 내 형제들을 섬기어라. 그리고 이처럼 좋게 잘하는-행동을 하는 것에 지치지 말고, 하느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봉사에 임명된 사람으로서 끈기 있게 견디어 내거라. 네가 이 땅에서의 나와 함께 하는 봉사를 완결하게 되면, 영광 안에서 나와

더불어 섬기게 될 것이다. 도마야, 너는 의심하기를 그만두어야만 한다; 너는 신앙 안에서 그리고 진리에 대한 지식 안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하느님을 믿으라, 그러나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행동하는 것은 그만두라. 용기를 가지라; 신앙 안에서 강해지고 그리고 하느님의 왕국 안에서 막강하게 되어라.”

192:2.10 (2049.1) 그리고 나서 주(主)는 나다니엘에게 “나다니엘아, 너는 나를 섬기느냐?”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 사도는 “예, 주(主)여, 온전한 애정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그렇다면, 만일 네가 온전한 가슴으로 나를 섬긴다면, 이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의 행복을 위하여 네가 지칠 줄 모르는 애정으로 헌신해야 함을 명심해라. 네가 조언을 할 때 우정과 함께 하고, 네 철학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여라. 내가 너를 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들을 섬겨라. 내가 너를 돌보아 준 것처럼 사람들에게 신실하여라. 비판을 줄이고; 사람들에게 기대(期待)하는 정도를 낮춤으로써, 너의 실망을 줄이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곳에서의 일을 마치게 되면, 너는 나와 함께 저 높은 곳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192:2.11 (2049.2)

그 다음에 주(主)는 마태와 빌립과 함께 이야기하였다. 그는 빌립에게 “빌립아, 너는 내 말에 순종하느냐?”라고 말씀하였다. 빌립은 “예, 주님, 당신이 제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主)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만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해라. 선지자들이 너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너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을-아는 왕국의 아들이 되었다. 순종해야 할 법이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그것은 나가서 왕국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진리의 빛에 굶주리고 흑암 속에서 번민하는 네 동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쁜 소식을 대담하게 전하라. 빌립아, 너는 더 이상 돈과 재물을 위하여 바쁘게 일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너는 네 형제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기쁜 소식을 자유롭게 전파해라. 그리고 나는 너의 앞에서 갈 것이며,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192:2.12 (2049.3)

그러고 나서 마태에게 말하면서 “마태야, 너는 진심으로 내 말에 순종하느냐?”라고 물었다. 마태는 “예, 주님 저는 당신의 뜻을 행하는데 충만하게

봉헌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주(主)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마태야, 만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모든 민족들에게로 가서 이 왕국 복음을 가르쳐라. 너는 더 이상 네 형제들의 일생에서의 물질적인 사물을 위하여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부터 너도 영적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도록 하여라. 지금부터는 오직 아버지의 왕국에 대한 이 복음을 전도하는 임무에만 전념하도록 하여라.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같이, 너도 신성한 임무를 완수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네 형제라는 것을 명심해라. 너는 하늘의 왕국 복음이라는 구원의 진리들을 전파할 때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가는 곳으로, 너도 곧 오게 될 것이다.”

192:2.13 (2049.4) 그리고 나서 그는 알패오 쌍둥이, 야고보와 유다에게로 가셨으며, 두 사람에게 “야고보와 유다야, 너희는 나를 믿느냐?”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똑같이 “예, 주(主)여, 저희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는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육신으로는 이미 너희를 떠났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이런 형체로 잠시

동안만 머무를 것이다. 너희는 나를 믿었고—너희는 내 사도들이며, 또한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 내가 떠난 후에, 너희가 나와 같이 행동하기 전에 너희가 하였던 일로 돌아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했던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 너희가 물질적인 일을 하게 되더라도, 너희의 충성심을 좌우할 만한 어떤 기회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가져라. 너희가 신앙으로 하느님의 아들이 될 때,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정직한 일들이 신성하게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하느님의 아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 하잘것없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부터 일을 할 때 하느님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을 마칠 때, 나에게는 너희가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게 되는 더 좋은 다른 세상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과 다른 세상들에서, 나는 너희와 같이 일할 것이며,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192:2.14 (2049.5) 예수가 알패오 쌍둥이와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신 것은 거의 10시가 되었을 무렵이었으며, 그는 사도들을 떠나시면서 “너희를 사도로 임명하였던 산에서 내일 정오에 너희 모두를 만날 때까지 잘 있어라.”라고

말씀하였다. 그렇게 말씀한 후에 그는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제 3 장. 사도 임명의 산에서

192:3.1 (2050.1) 4월 22일 토요일 정오에, 열 한 사도들은 약속대로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동산 위에 모였으며, 예수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 이번의 만남은 주(主)의 사도로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 왕국의 대사로서 그가 그들을 지정하였던 바로 그 산 위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주(主)의 14번째 모론시아 현시활동였다.

192:3.2 (2050.2) 이 때 열 한 사도들은 주(主) 주위에 둥그렇게 원을 그리면서 무릎을 꿇었으며, 그가 유시들을 반복하는 것을 들었고 왕국의 특별 임무를 위하여 처음 지정되었을 때처럼 사도로 임명하는 장면을 재현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주(主)의 기도를 제외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봉사에 대한 그들의 예전에 봉헌의 기억과 동일하였다. 주(主)께서—모론시아 예수— 기도할 때, 힘의 말씀과 함께 그의 음성은 장엄하였으며 지금까지 사도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이제 그들의 주(主)는 그 자신의 우주 안에서 모든 힘과 권한을 손에

쥬신 분으로서 우주들의 통치자들과 의논하였다. 그리고 이 열 한 명의 사도들은 대사 직분의 이전의 서약에 대한 모론시아 재(再)-봉헌의 이 체험을 결코 잊지 못하였다. 주(主)는 자기 대사들과 함께 이 산 위에서 한 시간 동안 함께 계셨으며, 그들에게 자애로운 작별 인사를 한 후에,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192:3.3 (2050.3) 그리고 그 후로 한 주일 동안 아무도 예수를 보지 못하였다. 사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실제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주(主)가 이미 아버지께로 가셨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들은 벳세다에 머물고 있었다. 그가 자기들에게 왔을 때 그를 만나지 못하게 될까 염려가 되어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못하였다. 이 일 주일 내내, 예수는 이 땅에 있는 모론시아 창조체들과 함께 계셨으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체험하는 모론시아 과도기의 관련사에 몰두하였다.

제 4 장. 호숫가에 모임

192:4.1 (2050.4) 예수가 여러 번 나타났다는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고, 매일같이 더 많은 신자들이 주(主)의 부활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그리고 그가 여러 번 보였다는 떠도는

소문이 진실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세베대의 집에 모여들었다. 그 주초에, 베드로는 공개 집회가 다음 안식일 오후 3시에 그 바닷가에서 있을 것이라고 공표 하였다.

192:4.2 (2050.5) 따라서, 4월 29일 토요일 3시에, 부활 이후 처음 있는 베드로의 대중 설교를 듣기 위하여 500명 이상의 신자들이 가버나움 근방으로부터 벳세다로 모였다. 사도는 자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그의 호소하는 강연이 다 끝난 후에는, 주(主)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청중은 거의 없었다.

192:4.3 (2050.6) 베드로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돌아가시지 않았음을 단언한다; 그가 무덤에서 살아나셨음을 선포한다; 우리가 그를 보았고 그와 대화를 나누었음을 공포한다.” 그가 신념에 찬 이 선언을 마쳤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주(主)께서 그의 옆에 모론시아 형체로 나타났으며, 낯익은 어투로 그들에게 “평화가 너희에게 있으라. 그리고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였다.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한 후에, 그는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이것이 부활한 예수가 15번째로 나타나신 모론시아
현시활동였다.

192:4.4 (2051.1) 사도임명 받은 그 산 위에서 열 한 사도들이
주(主)와 회의를 하는 동안에 들었던 특별한 말씀을
통하여, 사도들은 주(主)께서 갈릴리의 무리들 앞에서 곧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리라는 것과 그가 그렇게 한 후에는
자기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인상을 받았다.
따라서 다음 날인 4월 30일 일요일 이른 아침에, 열 한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벳세다를 떠났다. 그들은
요단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여러 번 가르치고
설교하였으므로, 5월 3일 수요일 늦은 시각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에 도착하였다.

192:4.5 (2051.2) 요한 마가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슬픈 귀향길
이었다. 그가 도착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그의 아버지
엘리야 마가가 뇌출혈로 인하여 갑자기 죽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슬픔을 많이 위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근심과
낙심에 젖어 있을 때에도 그들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던, 훌륭한 친구를 잃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애도하였다. 요한 마가는 최선을 다하여 자기 어머니를 위로하였고, 어머니를 대신해서, 사도들이 그 집에 계속 머물도록 그들을 청하였다. 그리고 열 한 명의 사도들은 오순절이 지날 때까지 이 다락방을 그들의 본부로 사용하였다.

192:4.6 (2051.3) 사도들은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러 해가 진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또한 그들은 엘리야 마가를 장사 지내는 동안에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은 사건 많은 이 다락방에서 다음 날 하루 종일 조용히 은둔하고 있었다.

192:4.7 (2051.4) 목요일 밤에 사도들은 이 다락방에서 훌륭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도마와 시몬 젤로떼 그리고 알패오 쌍둥이를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대중을 위한 전도에 나가서 부활한 주님에 대한 새로운 복음을 전파하기로 모두 맹세하였다. 왕국 복음—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관계와 사람들의 형제신분—을 예수의 부활에 대한 선포로 변경시키는 첫 번째 단계가 이미 시작되었다. 나다니엘은 그들의 공개적인 설교 요지에서 이렇게 변경시키는 것을 반대하였지만, 베드로의 설득력을 당할

수가 없었으며, 제자들, 특히 여자 신도들의 열광도 이겨낼 수 없었다.

192:4.8 (2051.5) 그리하여, 베드로의 원기 왕성한 지도력 아래에서, 그리고 주(主)가 아버지께로 미쳐 올라가기도 전에, 그의 좋은-의미를 지닌 대표자들은, 예수의 종교를 예수에 관한 종교라는 새롭고도 수정된 형태로 차츰차츰 그리고 확실하게 변경하는 미묘한 과정을 시작하였다.

제 193 편 마지막 출현과 상승

193:0.1 (2052.1) 예수의 16번째 모론시아 현시활동은 5월 5일 금요일, 니고데모의 집 안마당에서 밤 9시 경에 발생하였다. 이 날 저녁,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부활 사건 이후(以後) 처음으로, 함께 모이고자 시도하였다. 이 때 모인 사람들은 열 한 사도들과, 여자 대원들과 그들의 친구들, 다수의 그리스인들을 포함한 50 여명의 다른 수제자들이었다. 이 신자들 무리가 30분 이상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모론시아 주(主)가 선명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즉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193:0.2 (2052.2) “평화가 너희에게 있으라. 너희는 내가 육신에서 해방된 후에 나타난 신자들—사도들과 제자들, 남자들과 여자들—중에서 가장 대표 적인 무리들이다. 내가 이전에 너희와 함께 하는 이 기간이 끝나게 되리라고 말한 것; 내가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증거하도록 내가 너희를 이제 부른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사제들과 유대인 통치자들이 어떻게 나를 죽이도록 넘겨주고, 그리고 내가 무덤에서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너희에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너희는 어찌하여 그토록 당황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셋째 날에 무덤에서 살아났을 때 너희는 왜 그렇게 놀랐느냐? 너희는 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못하였다.

193:0.3 (2052.3)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내가 가르치는 것을 가슴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면서 마음으로만 듣는 오류를 또 다시 하지 않도록 내 말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 중에 한명으로서 나의 체류의 시작부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나의 한 가지 목적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쳤다. 나는 너희가 하느님을-아는 생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느님을-게시하는 증여의 삶을 살았다. 나는 하느님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임을 게시하였다; 나는 너희를 세상에 있는 하느님의 아들들임을 게시하였다. 하느님께서 자기 아들들인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이다. 내 말을 신앙으로써, 이 사실은 너희 가슴 속에서 영원하고 살아있는 진리가 될 것이다. 살아있는 신앙에 의해서 너희가 신성하게 하느님-의식이 되어 가면, 너희는 빛과 생명의 자녀로서 영에게서 태어나며, 영원한 생명으로 우주들의 우주로 상승하고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는 체험을 성취하기까지 한다.

193:0.4 (2052.4) 나는 너희에게, 사람들 사이에서 너희의 임무는 왕국 복음—하느님의 아버지신분의 실체와 사람의 아들관계의 진리—을 전파하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충고한다. 단지 구원하는 복음의 일부가 아니라. 좋은 소식의 진리 전체를 전파해라. 너희의 메시지는 나의 부활 체험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는다. 신앙으로서 하느님과의 아들관계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왕국 복음의 구원하는 진리이다. 너희는 하느님의 사랑과 사람의 봉사를 전파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세상이 가장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다: 곧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들이고, 신앙을 통하여 저희가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이 진리를 실재로 실현할 수 있고, 나날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의 증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도움을 주겠지만, 만일 그들이 영원한 아버지의 살아있는 영 아들이라는 구원의 진리를 신앙적으로-파악하는 일에 개인적으로 실패한다면, 그러한 지식은 충분한 것이 못된다. 왕국 복음은 아버지의 사랑과 땅에서의 그의 자녀들의 봉사와 관련되는 것이다.

193:0.5 (2053.1) “내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것에 대한 지식을 여기에 있는 너희들끼리 서로 나누고 있지만,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가졌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세도 가졌으며; 아버지는 그러한 힘을 그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에게 주신다. 내가 요셉의 새 무덤을 떠난 후 즉시로 한 시대의 죽은 자들이 영원한 상승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너희 마음에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하느님을-게시하는 것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봉사를 통하여 너희가 너희 동료들에게 하느님을-게시하는 것이 되는 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육신으로 나의 일생을 살았다. 너희들 자신은 물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너희가 하느님의 아들들임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사람의 아들이로서 너희와 함께 살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인류에게 이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파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 동료들을 섬겨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동안, 그리고 내가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만 이곳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는 너희를 커다란 진리로 인도할 것이며, 너희가 온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193:0.6 (2053.2) 주(主)는 그들에게 말씀을 마친 후에,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이 신자들이 헤어진 것은 거의 날이 쉼 무렵이었다; 그들은 주(主)의 훈계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심사숙고하면서 밤새도록 같이 있었다. 야고보 세베대와 다른 사도들도 갈릴리에서 모론시아 주(主)와 함께 가졌던 그들의 체험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으며, 그가 그들에게 세 번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제 1 장. 시카에 나타나심

193:1.1 (2053.3) 5월 13일 안식일 오후 4시 경에, 주(主)는 시카에 있는 야곱의 우물 근처에서 75명가량의 사마리아인들과 날다에게 나타났다. 그 신자들은 예수가 생명의 물에 관하여 날다에게 말씀하였던 이 우물 근처의 이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다. 그들이 이 날 부활의 소식에 대한 토의를 막 마쳤을 때, 예수가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193:1.2 (2053.4) “평화가 너희에게 있으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기쁨을 향유하였지만, 만일 너희가 먼저 영으로 태어나고 신앙으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소유하게 되지 못한다면, 이것이 너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만일 너희가 내 아버지의 신앙의 아들이라면,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왕국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이 좋은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만 한다. 이제 너희가 하느님께 경배 드리는 때가 다가 왔으니 이는 게리짐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니, 그것은 어디든지 너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너희가 있는 그대로의 너희로서,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는 것이다. 너희 혼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신앙이다. 구원은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속지 마라; 구원이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신앙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증여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은 육신으로 살아 가면서 그에 따라 이 영 생명에서의 열매를 맺는 체험에 따라오는 것이다.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희가 또한 사람들의 형제신분이라는 그에 연관된 진리도 자유롭게 거저 받아들이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사람이 너희 형제라면, 그는 실로 너희의 이웃보다 더한 것이고, 아버지는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너희에게 요구하고 있다. 너희 형제는, 너희 가족으로 있으니, 너희가 가족의 애정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봉사하듯이 그렇게 너희가 봉사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너희 형제를 사랑하고 봉사할 것이니, 왜냐하면 너희가 내 형제로 있고, 나에게서 것처럼 사랑과 봉사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라,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종족과 민족과 국가에 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라. 내 영이 너희 앞에서 먼저 갈 것이며,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193:1.3 (2054.1) 이 사마리아인들은 주(主)의 이 출현에 크게 놀랐으며 그들은 가까운 성읍과 마을로 급히 나가서, 그들이 예수를 보았다는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였다는 소식을 그곳에서 널리 전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주(主)의 17번째 모론시아 출현 이었다.

제 2 장. 페니키아에 나타나심

193:2.1 (2054.2) 주(主)의 18번째 모론시아 출현은 5월 16일 화요일, 저녁 9시 조금 전에 티레에서 있었다. 그는 신자들이 모임을 마치고 막 흩어지려고 할 때 다시 나타났으며 이렇게 말씀하였다:

193:2.2 (2054.3) “평화가 너희에게 있으라.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알게 된 것을 기쁨으로 향유해라. 왜냐하면 그것에 의하여 너희들 자신과 너희 형제들도

역시 필사자 죽음에서 생존될 것을 너희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존은 너희에게 사전에 진리를-찾아 나서고 하느님을-발견하는 영적 탄생이 이루어졌는지에 달려있다. 진리에 굶주리고 정의에 목마른—하느님을 향한— 자들에게만, 그것으로부터 생명의 빵과 물이 주어진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사실은 왕국 복음이 아니다. 이러한 엄청난 진리들과 우주의 사실들은 기쁜 소식을 믿은 결과의 일부분으로서 모두 이 복음과 관련되며 그리고 신앙으로 정말로 그리고 진실로 영원 하느님의 영속하는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그 후에 갖게 되는 체험에 포용된다. 내 아버지는 아들관계의 이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나도 아들관계의 이 구원을 전파하기 위하여 너희를 보낸다. 구원은 하느님의 대가 없는 선물이지만,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동료 창조체들에 대한 사랑 넘치는 봉사 안에서 영의 열매를 즉시 보여주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영으로-태어나고 하느님을-아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맏히게 되는 신성한 영의 열매들은: 사랑 넘치는 봉사, 사심-없는 헌신, 불굴의 충성심, 진지한 공정성, 깨우친 정직성, 사라지지 않는

희망, 자신하고 있는 신뢰, 자비로운 사명활동, 시종여일한 덕, 용서하는 인내심,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평화이다. 만일 신자임을 고백한 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신성한 영으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들은 죽어 있는 것이다; 진리의 영이 그들 속에 없다; 그들은 살아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쓸모없는 가지들이며, 곧 잘라버리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신앙의 자녀들에게 영의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에게 열매가 없다면, 너희의 뿌리들을 파내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잘라버리실 것이다. 너희는 하느님의 왕국 안에서 하늘방향으로 진보하면서 점점 더 많은 영의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너희는 어린아이로 왕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아버지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숙된 온전한 형상으로 자라갈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너희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든 나라들에게 전하면서 멀리 퍼져 나갈 때, 나는 너희 앞에서 갈 것이며, 내 진리의 영은 너희의 가슴속에 거할 것이다.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193:2.3 (2054.4) 그리고 나서 주(主)는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다음 날 티레를 떠나서 그들이 이 이야기를 시몬,

그리고 심지어는 안디옥과 다마스쿠스까지 전했다. 예수는 육신으로 계실 때 이 신자들과 함께 계셨었으며, 그들은 그가 자기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를 즉시 알아보았다. 모론시아 형태로 눈에 보였을 때 그의 친구들은 바로 인지할 수 없었지만,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였을 때 그의 개인성을 정체성 확인하는 데 결코 느리지 않았다.

제 3 장.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출현

193:3.1 (2055.1) 5월 18일 목요일 아침 일찍, 예수는 모론시아 개인성으로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다. 열 한 사도들이 마리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침 식사를 들기 위해 앉으려고 할 때, 예수가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이렇게 말씀하였다:

193:3.2 (2055.2) “평화가 너희에게 있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모든 육체에게 곧 부어지고, 높은 곳으로부터 힘을 너희에게 자질로서 부여할 진리의 영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 이곳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너희에게 부탁했었다.” 시몬 젤로떼가 예수의 말씀을 가로막으며 “그렇다면 주(主)여, 당신께서 그

왕국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까?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현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라고 물었다. 시몬의 질문을 다 들으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는 아직도 유대인의 메시아와 물질적인 왕국에 대한 옛 관념들에 이직 매달려있구나. 그러나 영이 너에게 임한 후에 너는 영적 힘을 받아들일 것이며, 너는 곧 온 세상에 나가 이 왕국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바란다. 유다는 그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충실한 형제인 너희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와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은 것이다. 너희는 성서에 ‘혼자 있는 것이 사람에게 좋지 않다. 아무도 혼자 살 수 없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또 ‘친구가 되고자하는 사람은 자신의 호의를 보여 주어야만 한다’고 쓰여 있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어 가르치게 했을 때에도, 너희가 외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고독한 해독과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둘씩 짝을 지어 보내지 않았느냐? 또한 너희도 잘 알다시피,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나 혼자서 오랜 기간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조심하였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초기부터, 나는 너희들 중에 두 세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있도록 하였고, 내가 아버지와 교제를 나눌 때에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서로 신뢰하고 자신하도록 해라.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희를 홀로 이 세상에 남겨두게 되었으니, 이러한 것들이 더욱 필요하다. 그 때가 왔고; 나는 곧 아버지께로 떠날 것이다.”

193:3.3 (2055.3) 말씀을 마친 그는 그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손짓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올리브 산으로 올라가셨으며, 그곳에서 유란시아를 떠나는 준비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올리브 산으로 가는 여행은 매우 장엄하였다. 그들은 다락방을 떠날 때부터 예수와 함께 올리브 산에서 쉼 때까지 아무도 말이 없었다.

제 4 장. 유다가 패망한 이유

193:4.1 (2055.4) 주(主)께서 사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서두에, 유다를 잃은 것에 대해 언급하였고, 사회에서의 그리고 형제우애에서의 고립의 위험성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함으로서 그들의 배반적인 동료 일꾼에 대한 비극적인 숙명을 거론하였다. 주(主)의 말씀에 조명하여,

그리고 지나간 수세기 동안에 계속 발전되어 온 깨우침의 견지에서, 유다의 실패 원인들을 간단히 돌이켜 보는 일은, 현 시대나 앞으로 오는 시대들의 신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93:4.2 (2055.5) 우리가 이 비극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는 유다가, 애초부터, 그의 매우 두드러진 고립된 개인성, 통상적인 사회적 접촉으로부터 멀어지고 안으로 폐쇄된 개인성이기 때문에, 그릇됨에 빠졌다고 착상하고 있다. 그는 자기 동료 사도들을 신뢰하는 것과, 자유롭게 그들과 형제우애를 나누기를 완고하게 거부하였다. 그러나 개인성에서의 고립된 유형의 그의 존재가, 자체적으로 그리고 저절로, 그가 것처럼 사랑을 키우고 영적 은혜 속에 자라는데 마찬가지로 실패하지 않았다면, 유다에게 그런 해악을 끼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그는 고집스럽게 원한을 품고 있었으며 복수심과 같은 심리적인 적과 그리고 그의 모든 실망감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똑같이 갚도록"하려는 일반화된 열망을 키워가고 있었다.

불운하게도 이렇게 조합된 개별적인 특성들과 정신적 경향들은, 사랑과 신앙 그리고 신뢰에 의해서 이러한 악을 정복하는 데 실패한 선의의 한 사람을 파괴하는데 공모하였다. 유다가 그릇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은 도마와 나다니엘의 경우에 의해 잘 증명될 수 있으며, 이 두 사람도 이와 같은 종류의 의심과 과도한 개별존재적인 경향으로 괴로움을 받았다. 심지어는 안드레와 마태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배움이 많았었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와 동료 사도들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고,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은혜 안에서 그리고 진리에 대한 지식 안에서 성장하였다. 그들은 점점 더 깊이 형제들을 점점 더욱 신뢰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형제들에게 속을 털어놓는 능력을 서서히 발전시켰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에게 속을 털어놓기를 끈질기게 거부하였다. 그는 그의 감정적 갈등들의 누적으로 자아-표현에서 위안을 찾아 나서도록 강요되었을 때, 그는 변함없이, 영적이지 못한 자기 친척들이나 어쩌다 알게 된 우연히 만난 친구들로부터 어리석은 위안을 받아들이고 조언을 구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그가 속한 이 세상에서 선별된 12명의 대사들이

속하는 하늘왕국의 영적 실체들의 진보와 번영에, 무관심하거나 실재적으로 적대적인 자들이었다.

193:4.4 (2056.2) 유다는 이 세상에서의 갈등과 투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인적 경향들과 성격적 연약성 때문에 패배하였다:

193:4.5 (2056.3) 1. 그는 인간 존재에서 고립된 유형이었다. 그는 매우 개별적이었으며 뿌리가 깊어진 “문이-닫힌” 가운데 성장하기를 선택하였으며 개인에서 비사교적인 유형이었다.

193:4.6 (2056.4) 2. 소년 시절에 그는 너무 안일한 일생을 살았다. 그는 방해 받는 것을 비통하게 여기며 분개하였다. 그는 항상 승리를 기대하였다; 패자가 되었을 때는 너무나 초라했다.

193:4.7 (2056.5) 3. 그는 실망에 대처할 수 있는 철학적인 기법을 습득하지 못하였다. 인간 실존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실망감들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는 항상 자신의 모든 개인적 어려움과 실망에 대하여, 특정한

누구이거나, 혹은 한 집단으로 있는 자기 연관-동료들을 비난하는 실천 관행에 어김없이 의존했다.

193:4.8 (2056.6) 4. 그는 항상 악한 감정을 품게 되었다; 복수의 관념을 항상 품었다.

193:4.9 (2056.7) 5. 그는 사실들에 솔직하게 대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일생의 상황들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였다.

193:4.10 (2056.8) 6. 그는 자신의 개인적 문제들에 대해서 가까운 연관-동료들과 의논하기를 싫어하였다; 실제 자기 친구들과,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문제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들이 함께 지낸 지난 수년 동안 그는 순전히 개인적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주(主)께 상의하지 않았다.

193:4.11 (2056.9) 7. 이러한 육신으로의 짧은 일생 동안 항상 공급되지는 않지만, 고상한 삶에 대한 실제 보상은 결국, 영적 상급이라는 사실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193:4.12 (2056.10) 변치 않는 그의 개인성 고립의 결과로, 그의 비탄은 배가되었고, 그의 슬픔은 깊어졌으며, 그의 근심은

증강되었고, 그의 절망감은 심화되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거의 초과하였다.

193:4.13 (2057.1) 자아-중심적이고 극도로 개별주의적인 이 사도가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에게 주된 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개인적으로, 그는 고립되어 있었다. 마음적으로, 그는 의심이 많고 복수심이 가득하였다. 체질적으로, 그는 무뚝뚝하고 원한을 품었다. 감정적으로, 그는 사랑이 없었고 용서하는 것이 없었다. 사회적으로, 그는 솔직하지 못하였고 거의 전적으로 자아-억제되어 있었다. 영적으로, 그는 거만하고 이기적 야심으로 차게 되었다. 살아 있을 때, 그는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무시하였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는 친구가 없었다.

193:4.14 (2057.2) 선의를 가졌었고 한 때는 예수를 진지하게 믿었던 사람이, 개인성 변환의 긴밀한 관계를 수년 동안 가진 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여 자기 동료들을 저버리고, 신성한 목적을 무시하고, 그의 거룩한 소명을 포기하고, 그리고 거룩한 주(主)를 배반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어우러진 이러한 마음적인 요소들과 악의 영향들이
설명해 준다.

제 5 장. 주(主)의 상승

193:5.1 (2057.3) 말이 없고 어느 정도 어리둥절히는 열 한 명의 사도들과 함께 예수가 올리브 산 서쪽 기슭에 도착한 것은 5월 18일 목요일 아침 7시 30분경이었다. 그 산의 3분의 2 정도 되는 이 위치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겿세마네를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예수는 이제 유란시아를 떠나기에 앞서서 사도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였다. 거기에 그가 그들 앞에 서자, 지도가 없는데도 그들은 그의 주위에 둥글게 원을 그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주(主)가 말씀하였다:

193:5.2 (2057.4) “너희가 높은 곳으로부터 힘을 자질로서 부여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였다.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나려고 한다;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고, 곧,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는 내가 머물렀던 이 세상으로 진리의 영을 보낼 것이다; 그가 오면, 너희는 먼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는 세상 구석구석까지 왕국 복음을 새롭게

선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 동료들을 섬겨라. 너희 일생 속에서 맺히는 영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사람들은 서로 형제라는 진리를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과 너희 속에서 내가 살았던 그 일생을 기억해라. 나의 사랑이 너희를 보호하고,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며, 내 평화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잘 있어라.”

193:5.3 (2057.5) 모론시아 주(主)가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그는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소위 예수의 상승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유란시아에서 모론시아의 생애를 사신 40일 동안 사람들 눈에서 사라지신 다른 경우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193:5.4 (2057.6) 주(主)는 예루셈을 거쳐 에덴시아로 가셨으며, 그곳에서 파라다이스 아들의 감독 아래, 지고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모론시아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였고, 상승하는 영적 통로를 통해, 파라다이스의 아들관계의 지위로 그리고 구원자별의 최극 주권자의 지위로 돌아왔다.

193:5.5 (2057.7) 모론시아 예수가 자기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상승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네바돈 우주에 대한 그의
완벽한 주권의 공식적인 확인을 받아들이시기 위하여
그의 열 한 명의 사도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신 것은 이 날
아침 7시 45분경이었다.

제 6 장. 베드로가 회의를 소집함

193:6.1 (2057.8) 베드로의 지시에 따라서, 요한 마가와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 마가의 집에서 모이도록 수제자들을
부르러 나갔다. 10시 30분이 되었을 때, 120명에 달하는,
예루살렘에 사는 예수의 제자 대부분이 주(主)의 작별
설교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하여 그리고 그의 상승에 대해
알기 위하여 모였다. 이 무리들 중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 사도들이 최근에 갈릴리에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도 요한 세베대와
함께 왔다. 그녀는 오순절이 지난 직후에 벳세다에 있는
살로메의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 역시 이
회의, 주(主)가 이 세상에서의 생애를 마친 후에 소집된
그의 제자들의 첫 번째 회의에 참석하였다.

193:6.2 (2058.1) 시몬 베드로는 자청하여 동료 사도들을 대신하여 말하였으며, 열 한 사도들과 주(主)의 마지막 만남에 대해서 흥미진진하게 설명하였고 주(主)의 마지막 인사와 상승하여 사라지시는 장면을 감동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세상에서 전에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는 그런 회의였다. 이렇게 하기까지에는 이 회의가 한 시간 이상 지속되지는 않았다. 베드로는 그 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이 자리에 천거된 두 사람, 맛디아와 유스도 중에서 사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휴회(休會)가 선언되었다.

193:6.3 (2058.2) 그 후에 열 한 사도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갔으며, 두 사람 중에서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가 될 사람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기로 동의하였다. 제비는 맛디아 쪽으로 뽑혔으며, 그는 새로운 사도로 임명되었다. 그는 직책을 정식으로 받게 되었으며 회계원으로 지명되었다. 그러나 맛디아는 그 후의 사도들의 활동에서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193:6.4 (2058.3) 오순절이 지나간 직후에 쌍둥이 형제는 갈릴리에 있는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다. 시몬 젤로페는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한 동안 쉬었다. 도마는 보다 짧은 기간 동안 고민한 후에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나다니엘은 초기의 왕국 복음 대신에 예수에 관하여 설교하는 베드로와 점점 더 의견이 달라졌다. 이 의견 차이가 그 다음 달 중순경에 너무 심화되어, 나다니엘이 물러났고, 그는 아브너와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 필라델피아로 갔으며; 그곳에서 일 년 이상 머문 후에,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 건너편 땅으로 갔다.

193:6.5 (2058.4) 원래의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남은 6명은 예루살렘에서의 초기 복음 선포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되었으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그리고 마태가 그들이었다.

193:6.6 (2058.5) 정오 무렵에 사도들이 다락방에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왔으며 맛디아가 새로운 사도로 선출되었음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모든 신자들에게 기도예 동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그 기도는 주(主)가 보내겠다고 약속했었던 영의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되는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제 194 편 진리의 영 증여

194:0.1 (2059.1) 약 1시 경에, 120명의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은 모두 그 방 안에서 이상한 현존이 있음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이 제자들은 영적 기쁨과 안심 그리고 자신감을 주는 하나의 새롭고도 깊은 느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영적 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후 즉시, 예수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는 기쁜 소식과 왕국 복음을 나가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려는 강한 충동을 받았다.

194:0.2 (2059.2)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것은 주(主)께서 자기들에게 약속하였던 진리의 영이 도래하였다는 증거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에게 위임된 그 기쁜 소식을 성전으로 가서 전파하기 시작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가 제안한 대로하였다.

194:0.3 (2059.3)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도해야 할 복음이 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람들의 아들관계라는 것을 훈련받고 교육받았었지만, 영적 흥분과 개인적 승리감의 이 순간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소식, 가장 엄청난 소식은 주(主)가 부활한 사실이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위로부터 주어진 힘을 자질로서 부여받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예수를 통한 구원까지도—을 전파하며 나아갔다 그러나 고의는 아니지만 복음에 연관되는 사실들의 몇 개로 복음의 내용 그 자체를 대체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러한 오류에 있어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앞장섰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를 따라갔고, 기쁜 소식의 새로운 해석으로부터 새 종교를 창시한 바울에 까지 이어졌다.

194:0.4 (2059.4) 왕국 복음은 이것이다: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에 대한 사실, 이와 나란히 짝을 이루는 사람들의 형제신분-아들관계의 결과적 진리이다. 그리스도교는, 그 날부터 발전된 바와 같이, 이것이다: 일어났고 그리고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와 갖는 믿는 자-친교관계의 체험과 관련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의 하느님에 대한 사실이다.

194:0.5 (2059.5) 영이 주입(注入)된 이 사람들이, 그들의 주(主)를 죽이려 하고 그의 가르침의 영향을 없애버리려고 하였던 그 세력에 대해 자신들의 승리의 감정들을 표현할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예수와 그들의 개인적 관련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주(主)가 여전히 살아 계시고 자신들과의 친구 관계가 끝나지 않았으며 그의 약속대로 영이 정말로 도래하였다는 확신으로 감동되는 것이 보다 쉬운 일이었다.

194:0.6 (2059.6) 이 신자들은 자기들이 다른 세계, 기쁨과 힘과 영광의 새로운 생활로 갑자기 전환되었음을 느꼈다. 주(主)는 그들에게 왕국이 힘을 가지고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으며, 그들 중의 일부는 그가 의미하였던 것 그들이 알아보기 시작하였다고 생각하였다.

194:0.7 (2059.7)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고려되고 나면, 어떻게 하여 이 사람들이 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람들의 형제신분이라는 내용의 초기 메시지 대신에 예수에 관한 새로운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지를 납득하는 것이 쉬워진다.

제 1 장. 오순절 설교

194:1.1 (2060.1) 사도들은 지난 40일 동안 숨어 있었다. 이 날은 공교롭게도 유대인의 오순절 축제일이었으며, 세계 각지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 이

축제를 위하여 도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월절 이후 계속 그 성안에 머물고 있었다. 이제 움츠렸던 사도들은 그들의 몇 주간의 은거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성전에 나타났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부활한 메시아의 새로운 메시지를 전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마찬가지로 통찰력과 힘의 새로운 영적 자질을 받아들였음을 의식하게 되었다.

194:1.2 (2060.2) 주(主)가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셨던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가 서서 열정적으로 호소하여,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얻는 결과를 가져오는 감동적인 호소를 한 것은 2시 경이었다. 주(主)는 떠났지만, 그들은 그에 관한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발견하였다. 그들이 이전에 예수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정당화하며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그를 믿도록 강요하는 더 많은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집회에 참석한 여섯 명의 사도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그리고 마태였다. 그들은 1시간 30분 이상 이야기하였고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로 메시지를 전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이 쉽게 말할 수 있는 다른 언어로도 몇 마디씩 설교하였다.

194:1.3 (2060.3) 유대인 영도자들은 사도들의 대담함에 몹시 놀랐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믿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방해하지 못하였다.

194:1.4 (2060.4) 4시 30분경에 2,000명 이상의 새 신자들이 사도들을 따라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갔으며, 그곳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주(主)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날이 어두워서야 그들은 이 군중들에게 세례를 다 마칠 수 있었다.

194:1.5 (2060.5) 오순절은 야훼를 섬기려는 할례의 의무가 없는 이방인들이 서로 교제하는 기간으로 세례의 큰 축제였다. 그러므로 믿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많은 무리가 이 날 세례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유대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이 일이 있은 후 한 동안까지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아 있었다. 사도들을 포함하여 그들 모두는, 유대인의 의식적(儀式的) 체계의 기본 조건들을 여전히 신봉하였다.

제 2 장. 오순절의 의의(意義)

194:2.1 (2060.6) 예수는 땅에서 사셨으며, 그리고 사람이 악마의 자손이라는 미신으로부터 사람을 되찾아 회복해서 그를 하느님의 신앙 아들의 존엄으로 들어 올리는 복음을 가르치셨다. 예수의 메시지는, 그의 시대에 그가 그것을 설교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사신 것처럼, 그것이 진술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영적 어려움을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그의 자리에 그의 진리의 영을 보내는데, 이는 사람 안에 살도록, 그리고 각각의 새로운 세대를 위하여, 예수 메시지를 다시 진술하도록, 그로서 이 땅 표면에 새로 나타나는 필사자들의 모든 새로운 집단마다 복음의 새롭고도 가장 최신의 해석본을 가지도록, 바로 그러한 것이 사람의 언제까지나-새롭고도 다양해지는 영적 고난들에 대해 효과있는 해결이 될 것임을 입증하는, 개인적 깨우침과 집단적 안내가 되도록, 고안되어 있다.

194:2.2 (2060.7) 이 영의 첫 번째 임무는, 물론, 진리를 육성하고 그리고 개인성구현하는 것이니, 이는 인간 해방의 최고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이해심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영의 목적은 신자들이 가지는

고아-신분의 느낌을 파괴하는 것이다. 예수가 사람들 사이에 있었으니, 진리의 영이 사람들 가슴속에 내주하기 위하여 오지 않았더라면, 모든 신자들은 외로움의 감각을 체험하였을 것이다.

194:2.3 (2061.1) 아들의 영의 이 증여는, 그 다음에 모든 인류에 대한 아버지의 영(조절자)의 우주적 증여를 위하여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들을 효과적으로 준비시켰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진리의 영은 우주 아버지와 창조자 아들 둘 모두의 영이다.

194:2.4 (2061.2) 부어진 진리의 영을 지적으로 강하게 인식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라. 영은 결코 그 스스로에 대한 의식(意識)을 창조하지 않으며, 오직 아들인 미가엘의 의식만 창조한다. 처음부터 예수는 영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과 너희의 친교의 증거는 이 영에 대한 너희의 의식 속에서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너희의 미가엘과 더욱 강화된 친교의 체험 속에서 발견된다.

194:2.5 (2061.3) 영은 또한 사람이 주(主)의 말씀을 상기하고
납득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의 일생을 조명하고 재-해석하기 위하여 왔다.

194:2.6 (2061.4) 다음으로, 진리의 영은 예수의 가르침들과
일생에서의 실체, 그가 육신으로 그것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준, 그리고 이제 다시 각각 지나가는 세대들의,
영으로-채워진 하느님의 아들들의 개별 신자 안에서, 또
새로운 그리고 또 육신으로 그것을 살고 그에 따라
보여주는, 그 실체들을 신자가 목격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다.

194:2.7 (2061.5) 그리하여, 진리의 영은 실제로 모든 신자들을
모든 진리로, 영원하고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관계로
살아있고 성장하는 영적 의식의 체험의 확대되는
지식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194:2.8 (2061.6) 예수는 어떤 한 사람이 명확하게 따르려고
시도하는 예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 사람을
계시한 그런 일생을 사셨다. 육신으로의 이러한 일생은, 곧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그 후에 일어난 부활과
더불어, 악한 자의 죄사슬로부터—화나신 하느님의

유죄판결로부터— 사람을 다시 사기 위해 그렇게 지불된 속죄의 새로운 복음으로 되어 버렸다. 복음이 크게 왜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관한 이러한 새로운 메시지가 그의 초기 왕국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들을 많이 함께 전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조만간 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람들의 형제신분에 대한 감추어진 진리들은 모든 인류의 문명을 효과적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194:2.9 (2061.7) 그러나 이들 지능에서의 오류들은 신자의 영적 성장의 커다란 진보를 어떤 방법으로도 방해하지 않았다. 그 사도들은 진리의 영이 증여된 후 한 달도 못되어서, 거의 4년에 걸친 주(主)와의 개인적이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개별적인 영적 진보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관계에서의 구원하는 복음 진리 대신에 예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대치시킨 것도, 그들의 가르침이 신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방해하지 못하였다; 그의 인물과 부활에 관한 새로운 가르침으로 인하여 예수의 메시지에 드리워진 이 그들은 오히려 새로운 소식의 전파를 크게 촉진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194:2.10 (2061.8)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게 된 “영의 세례(洗禮)”라는 용어는, 단지 진리의 영이라는 이 선물의 의식적인 받아들임과, 새로운 이 영적 힘이 하느님을-아는 혼들이 전에 체험하였던 모든 영적 영향들이 증강된 것임을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다.

194:2.11 (2061.9) 진리의 영이 증여된 이후로, 사람은 아버지의 영, 생각 조절자; 아들의 영, 진리의 영; 영의 영, 성령과 같이 자신에게 부여된 삼중적 영 자질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194:2.12 (2062.1) 얼마간, 인류는 우주 영의 영향들의 일곱 가지 힘의 중복된 작용을 필요로 한다. 필사자들의 초기 진화 종족들은 지역우주의 어머니 영의 일곱 가지 보조 마음-영들의 진보적 접촉이 필요하다. 사람이 지능과 영적 지각의 눈금에서 상향 진보하면, 결국에는 일곱 가지의 더 높은 영(靈)의 영향들이 그에게 날아와서 그의 안에 내주하게 된다. 그리고 진보하는 세계들의 이 일곱 가지 영들은 다음과 같다:

194:2.13 (2062.2) 1. 우주 아버지의 증여된 영(靈)—생각 조절자들.

194:2.14 (2062.3) 2. 영원한 아들의 영 현존—우주들의 우주의 영 중력 그리고 모든 영 교제의 확실한 경로.

194:2.15 (2062.4) 3. 무한한 영(靈)의 영 현존—모든 창조의 우주 영-마음, 진보하는 모든 지능들의 지적 친족관계의 영적 근원.

194:2.16 (2062.5) 4. 우주 아버지와 창조자 아들의 영—일반적으로 우주 아들의 영으로 간주되는 진리의 영.

194:2.17 (2062.6) 5. 무한한 영(靈)의 영과 우주 어머니 영의 영—일반적으로 우주 영의 영으로 간주되는 성령.

194:2.18 (2062.7) 6. 우주 어머니 영의 마음-영—지역우주의 일곱 보조 마음-영들.

194:2.19 (2062.8) 7. 아버지, 아들들 그리고 영들의 영—영으로 태어난 필사자의 혼과 파라다이스 생각 조절자의 융합 이후 그리고 그에 따라 나중에 파라다이스 최종의 무리단의 지위에서의 신성과 영광을 받은 이후에, 영역들에서 상승하는 필사자가 가지는 새로운-이름의 영.

194:2.20 (2062.9) 그리하여 그렇게 진리의 영의 증여는 하느님을
찾아 상승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계획된 영 자질의
마지막을 세상과 그곳의 사람들에게 가져다주었다.

제 3 장. 오순절에 일어난 일

194:3.1 (2062.10) 쓸모없고 이상한 많은 가르침들이 오순절 날의
초기 이야기들과 결합하게 되었다. 이어지는 시대들
속에서, 인류에 내주하기 위하여 새로운 선생님이
진리의 영이 왔던 이날의 사건들은 사납게 휩쓸린
감정주의의 어리석은 봉기들과 혼동되기 시작하였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유출된 이 영의 주된 사명활동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에 대한 진리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다른
모든 성격의 신성한 특색들 보다 더욱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신성의 진리들이다. 진리의 영은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의 영에 대한 본성과 아들의 도덕적인 성격을
계시하는데 관계가 있다 창조자 아들은 육신으로
하느님을 사람에게 계시하였다; 진리의 영은 가슴으로
창조자 아들을 사람들에게 계시한다. 사람이 그의 일생
속에서 "영의 열매들"을 맺었을 때, 그는 단순히 주(主)께서
이 세상에서 그자신의 일생 속에 현시되하셨던 그

특색들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뿐이다. 예수가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는 하나의 개인성—나사렛 예수—로서 그의 일생을 영위하였다. 오순절 이후, 주(主)는 “새로운 선생”의 내주 하는 영으로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신자의 체험 속에서 그의 새로운 일생을 사실 수 있게 되었다.

194:3.2 (2062.11) 인간 일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이해하기 힘들고, 이것이 진리가 우세하고 정의(正義)가 승리하는 그러한 우주라는 관념과 조화시키기가 어렵다. 너무나 자주 중상, 거짓말, 부정직, 그리고 불의—죄—가 득세하는 것이 나타난다. 신앙이, 결국에는, 악과 죄와 사악한 불의를 이기게 될까? 그렇게 된다. 그리고 예수의 일생과 죽음이 선(善)의 진리와, 영으로 인도 받는 창조체의 신앙이 항상 정당화된다는 영원한 증명이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 “하느님이 와서 그를 구원하시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조롱하였다. 십자가형의 그날은 암울하였지만, 부활의 아침에는 영화롭게 빛났다; 오순절에는 여전히 더욱 빛나고 그리고 더욱 기쁨 넘치는 날이었다. 비관론적인 절망의 종교들은 일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한다; 그들은 끝없는 수면과

휴식 안에서 절멸되기를 갈망한다. 이것들은 원시적인 두려움과 공포의 종교이다. 예수의 종교는 분투하고 있는 인간성에 대하여 선포되는 신앙의 새 복음이다. 새로운 이 종교는 신앙, 희망 그리고 사랑 위에 세워진다.

194:3.3 (2063.1) 필사자 일생은 예수께 가장 힘들고 가장 잔인하며 가장 비통한 일격(一擊)을 가하였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신앙과 용기와 확고한 결단력으로 절망의 이 사명활동들에 대처하였다. 예수는 일생의 무시무시한 실체 속에서 생을 맞이하였고 그것을 정복하였다 — 죽음에서까지도. 그는 일생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종교를 이용하지 않았다. 예수의 종교는 다른 실존의 기다리고 있는 행복을 즐기기 위해서 이 일생을 피하려고 추구하지 않았다. 예수의 종교는 사람들이 현재 육신으로 살고 있는 그 일생을 고양하고 고상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영적 실존의 기쁨과 평화를 제공한다.

194:3.4 (2063.2) 만일 종교가 인간에게 마취제라면, 그것은 예수의 종교가 아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는 감각을 마비시키는 약을 마시기를 거절하였으며, 모든 육체에게 부여된 그의 영은 높은 곳을 향하도록 사람을 이끌고, 계속 향하도록

그를 충동하는 막강한 세계적 영향이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영적 충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힘차게 몰아가는 기세이다; 진리를 배우는 신자는 이 세상에서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혼을 가진 자이다.

194:3.5 (2063.3) 그 오순절 날에 예수의 종교는 모든 국가적 제약들과 종족간의 족쇄들을 없애버렸다. "주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해방이 있다."는 말은 언제까지나 진리이다. 이 날, 진리의 영은 주(主)로부터 모든 필사자 각자에게 주어지는 개인적 선물이 되었다. 이 영은 왕국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도하도록 신자들에게 자격을 갖추게 하는 목적으로 증여되었지만, 그들은 쏟아 부어지는 영을 받는 체험을,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형성하고 있었던 새로운 복음의 일부분으로 삼는 오류를 범하였다.

194:3.6 (2063.4) 진리의 영이 모든 진실 된 신자들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경시하지 말라; 영의 선물은 오직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다락방에 모여 있던 120명의 남자와 여자들은 모두 이 새로운 선생을 받았으며, 온 세상의 정직한 가슴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새로운 선생은 인류에게 수여되었으며,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영적 실체를 파악하고 깨닫는 힘에 따라서 모든 혼은 그를 받아들였다, 마침내, 참된 종교는 사제들과 그리고 모든 신성한 계층들의 보호관리에서 해방되고, 사람들의 개별적인 혼 안에서 그 실제 현시활동을 발견한다.

194:3.7 (2063.5) **예수의 종교는 영적 개인성에서의 가장 높은 유형을 창조하고 그 개인의 신성함을 선포하는 가장 높은 유형의 인간 문명을 육성한다.**

194:3.8 (2063.6) **오순절에 진리의 영의 도래는 급진적이지도 않고 보수적이지도 않은 종교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것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며; 나이 든 사람들에게 의해 지배되지도 않고 젊은 사람들에게 의해 지배되지도 않는다. 예수의 땅에서의 일생의 사실은 시간의 닳을 위한 고정된 점을 제공하는 반면에, 진리의 영의 수여는 그가 실천하였던 그 종교와 그가 전파하였던 그 복음의 영속하는 확대와 끝없는 성장을 제공한다. 영은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 그는 끝없는 진보와 신성한 전개로 확대되고 항상 성장하는 종교의 선생이다. 이 새로운 선생은 진리를 추구하는 신자에게, 사람의 아들의 개인**

안에 그리고 본성 안에 신성하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언제까지나 펼쳐 줄 것이다.

194:3.9 (2064.1) “새로운 선생”의 증여와 연관된 현시활동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여러 종족들과 나라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받아들임은 예수의 종교의 보편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왕국 복음은 그 어떠한 특정한 종족, 문화 또는
언어도 없이 정체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오순절의 이 날이
그것의 고유한 유대교의 속박으로부터 예수의 종교를
해방시키는 영의 커다란 수고를 입증하였다. 모든 육체에
영이 부어진 이 실증이 있는 후에도 역시, 처음에 사도들은
유대주의의 요구조건들을 그들의 개종자들에게
부과하려고 애를 썼다. 심지어는 바울도 그가 이방인들을
이 유대교 실천 관행들에 복종시키려 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형제들과 다툼이 있었다. 계시된
종교는 그것이 어떤 국가적인 문화가 침투되거나, 또는
확립된 인종적(人種的), 사회적(社會的), 또는 경제적 실천
관행들과 연관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할 때에는 모든
세계로 퍼지지 못한다.

194:3.10 (2064.2) 진리의 영의 증여는 모든 형식들, 의식(儀式)들, 거룩한 장소들, 그리고 그것의 현시활동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별한 행위와 무관하였다.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영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다만 아무 소리 없이 기도를 하면서 그곳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다. 영은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교외 지역에서도 수여되었다. 사도들은 영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뿔뿔이 헤어져 외로운 곳에서 몇 년간의 고독한 묵상이 필요 없었다. 모든 시간에서, 오순절은 특별하게 은혜로운 환경들에 대한 통념으로부터 영적 체험의 관념을 분리하여 연관되지 않도록 한다.

194:3.11 (2064.3) 오순절은, 그것의 영적 자질(자질)로, 주(主)의 종교를 모든 물리적인 기세에 의존으로부터 언제까지나 풀어내도록 예정되었다; 이 새로운 종교의 선생들은 이제 영적 무기들을 구비하였다. 그들은 끊임없는 용서, 비할 바 없는 선한 뜻, 그리고 풍부한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 그들은 선으로 악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미움을 정복하며 진리에 대한 용감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두려움을 파괴시킬 준비를 갖추었다. 예수는 자신의 종교가 결코 피동적이 아님을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랑의
현시활동과 자비의 사명활동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다. 이 신자들은 야훼를 더 이상 “무리들의
주님”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영원한 신(神)을
“하느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이 또한 모든 개별존재의 영적 아버지라는
진리를 충분하게 파악하는 데 어느 정도 실패하였지만,
적어도 거기까지는 진보를 이루었다.

194:3.12 (2064.4) 오순절은 필사 사람에게 개인적 상처를 받아들여
용서하는 힘과, 가장 심각한 불공정의 상황에서도 상냥할
수 있는 힘과, 무시무시한 위험에 직면하여서도 여전히
태연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사랑과 인내의 두려움 없는
행동을 함으로써 미움과 분노의 악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자질로서 부여하였다. 유란시아는 그 역사 속에서
엄청난 파괴적인 전쟁들에 의한 참혹한 피해들을 겪어
왔다. 이러한 끔찍한 투쟁 속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좌절을 체험하였다. 승리자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다;
이러한 비참한 투쟁들로부터, 드높아진 명성과 함께
떠오른 유일한 사람은—나사렛 예수와, 선으로 악을
정복하는 그의 복음뿐이었다. 보다 나은 문명에 대한

비결은 사람의 형제신분에 대한 주(主)의 가르침들, 상호적인 신뢰와 사랑의 선한 뜻 속에 깊이 묻혀 있다.

194:3.13 (2065.1) 오순절이 있기까지는, 하느님을 추구하는 사람만을 종교가 계시해 왔었으나; 오순절 이후로는, 사람이 여전히 하느님을 찾기는 하지만, 하느님께서도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발견한 후에는 그의 안에 내주 하도록 그의 영을 보내신다는 장관(壯觀)이 세상을 비친다.

194:3.14 (2065.2) 오순절에 최고조에 달하였던 예수의 가르침이 있기 이전에는, 여인들은 오래된 종교들의 교의(敎義)에서는 영적 지위가 조금 있거나 또는 없었다. 오순절 이후로, 여자는 왕국의 형제신분 속에서 남자와 동등하게 하느님 앞에 서게 되었다. 영의 이 특별한 방문을 받아들인 120명중에는 여성 제자들이 많이 있었으며, 그들은 이 축복을 남성 신자들과 동등하게 누렸던 것이다. 종교적인 예배봉사의 사명활동을 더 이상 남자들만이 독점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바리새인은 "여자나 문둥병 환자 또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였겠지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여인들은 성별에 따른 모든 종교적인 차별에서 언제까지나 자유롭게 되었다. 오순절은 인종의 구별, 문화적인 차이들, 사회적인 특권계급, 또는 성별에 따른 편견에 근간을 둔 모든 종교적 차별을 없애버렸다. 이 새로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주(主)의 영이 임하는 곳에 해방이 있다.”라고 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94:3.15 (2065.3) 예수와 어머니와 형제들도 120명의 신자들 속에 있었으며, 그들도 이러한 일반 제자들의 일원으로서 쏟아 부어진 영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그들의 친구들이 했던 것보다 좋은 선물을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의 땅에서의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한 선물이 주어지지 않았다. 오순절은 특별한 사제신분과 신성한 가문에 대한 모든 믿음을 종식시켰다.

194:3.16 (2065.4) 오순절이 있기 전에 사도들은 예수를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했었다. 그들은 그들의 가정, 가족들, 친구들, 세상의 재물들과 지위를 희생하였다. 오순절에 그들은 자신을 하느님께 드렸으며, 아버지와 아들은 자신들을 사람에게 주심—사람들 속에 내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을 보내심—으로써 그에 응답하였다. 자아를 버리고

영을 발견하는 이 체험은 하나의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능적인 자아-복종과 무조건적인 헌신의 행동이었다.

194:3.17 (2065.5) 오순절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적 합일이 이루어지는 부름이었다. 영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똑같은 일이 필라델피아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참된 신자들이 거주하는 모든 다른 장소들에서도 일어났다. "믿는 자들의 무리 중에는 오직 한 마음과 혼이 있었다."는 표현은 글자 그대로 진실이었다. 예수의 종교는 세상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강력히 통합시키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194:3.18 (2065.6) 오순절은 개별존재들과 집단들과 국가들 그리고 인종들의 자아-주장을 줄여주도록 예정되었다. 긴장 속에서 그렇게 증가되어 주기적으로 파괴적인 전쟁들로 파열되어 느슨하게 되는 것은 이 자아-주장의 영이다. 인류는 영적 접근을 통해서만 통합될 수 있으며, 진리의 영은 우주적인 세상의 영향력이다.

194:3.19 (2065.7) 진리의 영의 도래는 인간의 가슴을 정화시키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인도하여 하느님의 뜻과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단 하나의 어떤 일생의 목적을 형성하도록 만든다. 자아본위의 물질적 영은 자아없음의 이 새로운 영적 증여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졌다. 오순절은, 그 때나 지금이나, 역사 속에서의 예수가 살아있는 체험의 신성한 아들이 되셨음을 가리킨다. 이 넘쳐나는 영의 기쁨은, 그것이 인간 일생 안에서 의식적으로 체험될 때, 건강을 위한 강장제(强壯劑), 마음에 대한 자극, 그리고 혼을 위한 부단한 힘이 된다.

194:3.20 (2065.8) 기도로 영이 오순절 날에 임하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개별적인 신자들을 특징짓는 접수성의 수용능력을 결정하는 데에 많은 일을 하였다. 기도가 증여의 풍성함이 되도록 신성한 가슴을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진지한 기도와 참된 경배를 통하여 자신들의 조물주와 중단 없는 교제를 유지하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의 가슴과 혼 속에, 그 신성한 증여들이 흐를 수 있게 하는, 보다 확대되고 깊어진 통로를 열어주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

제 4 장. 그리스도인 교회의 시작

194:4.1 (2066.1) 예수가 적에게 갑자기 체포되시고 두 강도들 사이에서 그토록 신속하게 십자가형에 처해지셨을 때, 그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완벽하게 사기가 꺾였었다. 체포되시고, 묶이시고, 채찍에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主)에 대한 기억이 제자들에게는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들은 그의 가르침들과 경고들을 잊었다. 정말로 그는 "하느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말씀과 행위에 있어서 힘 있는 선지자일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리라고 희망하는 그 메시아가 될 수는 없었다.

194:4.2 (2066.2) 그때에, 그것의 절망으로부터 해방과 주(主)의 신성에 대한 그들의 신앙의 회복과 함께 부활이 있었다. 그들은 여러 번 그를 보았고 그와 같이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는 그들을 올리브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그곳에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였다. 그는 그들이 힘을 자질로서 부여받을 때까지—진리의 영이 임할 때까지—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였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이 새로운 선생이 도래하였으며, 그들은 즉시 나아가서 새로운 힘으로 그들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들은

죽었으며 패배 당한 영도자가 아니라, 살아 계신 주님을 대담하고 용감하게 따르는 자들이었다. 주(主)는 이러한 복음 전파자들의 가슴 속에 살아 계신다; 하느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리가 아니다; 그들의 혼 속에서 살아있는 현존이 되었다.

194:4.3 (2066.3) “그들은 한결같이 날마다 성전에서 함께 모였으며 집에서 빵을 떼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고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한 가슴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들의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모두 영으로 충만하였으며 대담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군중들은 한 마음과 혼 이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이든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194:4.4 (2066.4) 예수가 왕국 복음, 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람의 형제신분을 전파하면서 나아가라고 임명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들은 새로운 복음을 가졌다; 그들은 새로운 체험으로 흥분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영적 에너지로 가득 찼다. 그들의 메시지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쪽으로 급격히 변경되었다: “기적과 이적으로서

사람인 하느님이 증명된. 나사렛 예수; 최종적인 조언으로
그리고 하느님의 예지로 들어 올려 해방되신 이, 그를,
넘겨받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살해하였다.
하느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나타내신
것들을 그가 이렇게 성취하였다. 이 예수를 하느님이
소생시키셨다. 하느님은 그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 하느님의 오른 손으로 드높여지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영의 약속을 받게 되었음으로, 그가 너희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는 바로 이것을 쏟아부어주셨다.
회개하라, 그것으로 너희 죄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것으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지명해왔던 분, 곧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 있고, 만물의 소생의 시기까지 하늘이
받아들여야만 했던 분, 예수님 까지도, 보내실 수 있다.”

194:4.5 (2066.5) 왕국 복음, 예수의 메시지는 갑자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갑자기 변경되었다. 그들은 이제
그의 일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사실들을
전파하였으며, 그가 시작했던 일을 완결하기 위하여 그가
이 세상으로 속히 돌아오시리라는 희망을 전파하였다.
그리하여 초기 신자들의 메시지는 그의 초림(初臨)에 대한
사실들을 전파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아주 가까운

시간에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 사건인, 그의 재림(再臨)에 대한 희망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194:4.6 (2067.1) 그리스도는 급속도로 형성된 교회의 교리가 되려고 하고 있었다. 예수는 살아 계시다; 그는 사람들을 위해 죽었다; 그는 영을 주었다; 그는 다시 오고 계신다. 예수는 그들의 모든 생각들을 채웠으며 그리고 그들의 하느님과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새로운 개념을 결정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은 주님 예수의 아버지시다."라는 새로운 교리에 너무 열광한 나머지, 모든 개개의 개별존재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오랜 메시지에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형제로서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현시활동과 전례 없는 선한 뜻이 이러한 초기 신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솟아났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동료관계였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가족적인 왕국 속에서의 형제들의 동료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의 선한 뜻은 예수의 증여 개념에서 발생한 사랑에서 기인된 것이었으며, 필사 사람들의 형제신분에 대한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하였으며, 예수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에 모든 사람들이 매혹되는 그러한 새롭고도 독특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왕국 복음에 있는 살아있고 예증이 되는 해설을 바로 그 복음대신에 사용하는 큰 오류를 범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류에게 알려진 것 중 가장 훌륭한 종교를 나타내었다.

194:4.7 (2067.2) 틀림없이, 새로운 친교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성찬례와 기도에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친교를 변함없이 계속하였다.” 그들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호칭하였다; 그들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였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보살폈다. 이것은 삶에서와 같이 경배의 친교이었다. 그들은 법에 의한 공동사회가 아니라, 자신들의 재물을 동료 신자들과 나누고자 하는 열망에 의한 공동체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가 아버지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자신 있게 기대하였다. 세상에서의 소유물들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서로 나눈 것은 예수의 가르침의 직접적인 특성이 아니었다; 그가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일을 완결하고 그리고 그 왕국을 더할 나위 없이 이루실 것에 대하여 이 남자와 여자들은 너무도 진지하고 자신 있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제간의 경솔한 사랑에서의 선의적인 실험의 최종 결과는 비참하였고 슬픔을-놓게 하였다. 수천 명의 착실한 신자들은 그들의 부동산을 팔았고 그들의 자본이 되는 모든 재물들과 기타 생산적인 자산 일체를 처분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교인 들의 자산은 줄어들었고, “동등한 분배”는 끝이 나게 되었지만—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았다. 얼마 안 되어서,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이, 굶주리는 예루살렘의 동료 신자들을 돕기 위하여 모금을 하게 되었다.

194:4.8 (2067.3) 이 무렵, 그들은 주님의 만찬을, 그것이 창설된 방법에 따라서 거행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 훌륭한 교제 속에서 음식을 서로 나누는 것이었고 식사 후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194:4.9 (2067.4)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이것은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시작한지 거의 20년 전이었다. 신자들의 교제에 참여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세례였다.

그들에게는 아직 아무런 조직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의 형제신분이었다.

194:4.10 (2067.5) 이 예수의 교파는 신속하게 확장되었으며,
사두개인들이 다시 그들을 주목하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법의 계율과 가르침들의 어떤
것도 충돌하는 면이 없음을 알았기에 이러한 상황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예수 교파의
영도자들을 투옥시키기 시작하였고, 지도적인 랍비들 중
하나인 가말리엘의 다음과 같은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설득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였다: "이들의 조언과 활동이
사람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면 결국 없어지게 될 것이니
이 사람들에게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두도록 하라;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면, 너희가 그들을 없애지
못할 것이며, 하느님을 배척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들은 가말리엘의 조언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었으며, 그
동안 예수에 관한 새 복음이 신속하게 퍼졌다.

194:4.11 (2068.1) 그리하여 많은 숫자의 그리스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로단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리스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켰다. 그들이 초기에 개종시킨 사람들 중에는 스테반과 바나바도 있었다. 유능한 이 그리스인들은 유대인의 관점과 많이 달랐으며, 유대식의 경배와 기타 제의적 실천 관행들을 잘 따르지 않았다. 이 그리스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예수의 형제신분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 스테반과 그의 그리스인 연관-동료들은 더욱 더 예수가 가르쳤던 대로 전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그들은 곧 유대인 통치자들과 충돌하게 되었다. 스테반은 대중 설교 가운데 하나에서, 그의 강연이 도중에 반감을 일으키는 부분에 이르자, 그들은 모든 공식적인 재판절차를 무시하고 현장에서 그를 돌팔매질로 죽게 하였다.

194:4.12 (2068.2)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인 거류민단의 영도자인 스테반은 새로운 신앙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으며,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의 공식적인 조직에 특별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위기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더 이상 유대 신앙 속에서 한 교파로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비(非)신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켜야만 하겠다는 데에 모두 의견이 일치되었다; 스테반이 죽은 후 한 달이 못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영도자관계 아래, 그리고 예수의 형제 야고보를 명목상의 우두머리로 교회가 조직되었다.

194:4.13 (2068.3)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에 의해 새로운 잔인한 박해가 시작되었으므로, 예수에 관한 새로운 종교를 가르치는 의욕적인 선생들은 예수를 전파하면서 그 제국의 변방(邊方)들을 향하여 퍼져 나갔으며, 그 종교는 후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교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리스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들 최초의 선교사들은, 그 뒤를 이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전에 알렉산더가 행진하였던 길을 따라서, 가자와 티레로 통하는 길을 따라 안디옥으로 갔으며, 이어서 소아시아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갔고, 그 후에는 로마를 지나 그 제국의 변두리 지방들 까지 퍼져 나갔다.

제 195 편 오순절 이후

195:0.1 (2069.1) 오순절 날 베드로 설교의 결과들은, 왕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들에서, 대부분 사도들의 장래의 정책들을 정하고 그리고 계획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것들이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교 교회의 실제적 설립자였으며; 바울은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전파하였고, 그리스인 신자들이 그것을 로마제국 전역에 퍼뜨렸다.

195:0.2 (2069.2) 전통에 매이고 사제의 지배를 받는 히브리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람의 형제신분에 대한 예수의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상승에 대한 베드로와 바울의 선포 (후에 그리스도교가 됨)를 거부하였지만, 로마제국의 그 나머지는 확장되는 그리스도교 교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당시의 서방 문명은 지적이었고 전쟁에 지쳐 있었으며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과 우주 철학들에 대하여 속속들이 회의적이었다. 서방 세계의 민족들은, 그리스 문화의 수혜자들, 위대한 과거의 존경받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철학, 예술, 문학, 그리고 정치적 진보 분야에서 위대한 성취들의 유산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성취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혼을 만족시키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영적 갈망은 만족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195:0.3 (2069.3) 그러한 인간 사회의 무대 위로 예수의 가르침들이, 그리스도교의 메시지에 둘러싸여, 갑자기 밀려왔다. 새로운 삶의 질서가 그렇게 해서 이들 서방 사람들의 간절한 가슴에 제시되었다. 이 상황은 더 오래된 종교적 실천 관행과 세상에 대한 예수의 메시지에 대한 새로운 그리스도교식 해석 사이에 즉각적인 갈등을 의미하였다. 그러한 갈등은 새로운 것이나 옛 것이 결정적으로 승리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의 타협으로 끝나야만 한다. 역사는 투쟁이 타협으로 끝났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교는 어느 한 민족이 한 두 세대 동안에 동화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을 포용시키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가 사람들의 혼에게 제시하였던 것과 같은, 단순한 영적 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일찍부터 종교의식, 교육, 마술, 의술, 예술, 문학, 법, 정부, 도덕, 성(性)에 관한 규정, 일부다처제, 그리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노예제도에 대해서까지 분명한 태도를 고집하였다. 그리스도교는 단순히 하나의 새로운 종교—로마제국 전체와 모든 동방이 기다리고 있던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질서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으로서 그것은 당대의 사회적-도덕적 충돌을 신속히 촉진시켰다. 예수와 그의 제자(門徒)들은, 그리스 철학에 의해 재해석하고, 그리스도교 안에서 사회화됨에 따라서, 이제 서방 문명의 윤리 도덕, 종교 안에서 체현된 인간 종족의 전통에 대담하게 도전하였다.

195:0.4 (2069.4) 처음에는, 그리스도교는 오직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만 개종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2세기가 시작되면서 그리스-로마 문화의 최고점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새로운 질서, 삶의 목적과 실존의 목표에 대한 이 새로운 개념을 향하여 점점 더 돌아서고 있었다.

195:0.5 (2070.1) 어떻게, 그것의 태생의 땅에서는 거의 실패한, 유대에서 기원한 이 새로운 메시지가 그토록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로마제국의 최상의 마음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철학적인 종교들과 신비 예배종파들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승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 기인되었다:

195:0.6 (2070.2)

1. 조직. 바울은 위대한 조직가였으며 그의 후계자들은 그가 정한 걸음을 유지하였다.

195:0.7 (2070.3)

2. 그리스도교가 속속들이 그리스화 되었다. 그리스 철학의 최고뿐 아니라 히브리 신학의 정수(精髓)까지 포용하였다.

195:0.8 (2070.4)

3. 그러나 그 중에서 최고는, 그것은 새롭고도 위대한 이상(理想), 즉 예수의 생명 증여에서의 반향(反響)과 모든 인류에게 주는 그의 구원의 메시지에서서의 반영이 포함되었다.

195:0.9 (2070.5)

4. 그리스도교 영도자들은 미트라교와 기꺼이 타협해서, 그 추종자들의 절반 이상이 안디옥 예배종파로 전향되도록 하였다.

195:0.10 (2070.6)

5. 마찬가지로 그 다음과 그리고 그 후대의 그리스도교 영도자들도 이교도와 더욱 타협하여, 로마 황제 콘스탄틴마저도 그 새로운 종교에 설득되어졌다.

195:0.11 (2070.7)

그러나 그리스도교인들은 이교도의 의례적인 허식을 받아들이고, 한편으로는 이교도들에게 바울 그리스도교의 그리스화된 해석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이교도들과 영민한 거래를 했다. 그들은 미트라 예배종파와 맺었던 것보다는 이교도들과 더 나은 거래를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초기의 타협에서도 그들은 극심한 부도덕은 물론 페르시아 신비 사상의 비난받을 만한 다른 수많은 실천 관행들을 성공적으로 제거시킴으로써 정복자가 되고도 남았다

195:0.12 (2070.8) 현명하였든 또는 현명치 못했든, 이 초기의 그리스도교 영도자들은 예수의 이상들을 자의적으로 양보하고 그리고 더 많은 예수의 관념들을 구하려는 노력했다. 그리고 그들은 뛰어나게 성공했다. 그러나 오류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양보된 주(主)의 이상들은 여전히 그의 복음 속에 잠재되어 있으며, 결국에는 그들의 충분한 힘을 세상에서 주장하게 될 것이다.

195:0.13 (2070.9) 그리스도교의 이 이교화로 인하여, 옛 계층은 의례적인 본성에서의 많은 작은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도권을 얻었다:

195:0.14 (2070.10) 1. 인간의 도덕에서 새롭고도 엄청나게 높아진 음률을 부르짖었다

195:0.15 (2070.11) 2. 하느님에 대해서 매우 확대되고 새로운 개념을 세계에 주었다.

195:0.16 (2070.12) 3. 불멸의 희망이 인정받는 종교에서의 확신의 한 부분이 되었다.

195:0.17 (2070.13) 4. 사람의 굶주린 혼에게 나사렛 예수가 주어졌다.

195:0.18 (2070.14) 예수가 가르치셨던 위대한 진리들 대부분이 이러한 초기의 타협 속에서 거의 유실되었지만, 그것들은 아직도 이교화된 그리스도교의 종교, 다시 말해서, 사람의 아들에 대한 일생과 가르침을 지닌 바울파의 해석 안에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이교화 되기 전에 이미, 먼저 속속들이 그리스화된 그리스도교가 되었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인들에게 많은, 너무 많은 빛을 지고 있다. 이집트에서 온 그리스인이 니케아에서 용감하게 일어나서, 아주 두려움 없이 그의 증여에 대한 실제 진리가 세상에 알려지지 못할 위기에 처했을 이 집회에 도전하였고, 그 회의가 예수의 본성에 대한 개념을 감히 가리우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그리스인의 이름은

아다나시우스였으며, 이 신자의 논리와 웅변술이 아니었으면, 아리우스의 신조가 승리했었을 것이다.

제 1 장. 그리스인들의 영향

195:1.1 (2071.1) 그리스도교의 그리스화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는 아레오파구스 의회에 출두하여 “미지의 하느님”에 관하여 아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사건 많은 그 날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곳, 아크로폴리스의 그늘 아래에서, 이 로마 시민은 그곳에 있는 그리스인들에게, 갈릴리의 유대 땅에서 발생한 새로운 종교에 대해 자신의 해석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리스 철학에는 예수의 가르침들 중에서 많은 것과 유사한 점이 있었다. 그들은 공통적인 목적—둘 모두 개별존재의 창발에 두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리스인들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창발을; 예수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창발을. 그리스인들은 정치적인 자유로 인도하는 이성적인 자유주의를 가르쳤으며; 예수는 종교적 해방으로 인도하는 영적 해방주의를 가르치셨다. 이 두 관념들은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는 하나의 새롭고도 강력한 현장을 수립하였다;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영적 해방에 대한 전조(前條)가 되었다.

195:1.2 (2071.2) 그리스도교가 실존하게 되고 투쟁 관계에 있는 모든 종교들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게 된 두 가지 주요 원인은:

195:1.3 (2071.3) 1. 그리스인의 마음은 유대인들이라 해도 새롭고 좋은 관념들은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했다.

195:1.4 (2071.4) 2. 바울과 그의 후계자들은 기꺼이, 그러나 약삭빠르고 영리하게 타협하는 자들이었다; 신학을 다루는 날카로운 거래자들이었다.

195:1.5 (2071.5) 바울이 아덴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이자 십자가에 못박힌 이”에 대해 설교했을 때, 그리스인들은 영적으로 굶주려있었다; 그들은 묻고 있었고, 관심을 가졌으며, 실재적으로 영적 진리를 찾고 있었다. 처음에 로마인들은 그리스도교와 싸웠다, 반면에 그리스인들은 그것을 포용하였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리스 문화의 일부분인 것으로 수정된, 이 새로운 종교를 로마인들이

나중에 받아들이도록 말 그대로 압력을 가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인들이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195:1.6 (2071.6) 그리스인들은 아름다움(美)을 존경하였고, 유대인들은 신성함을 숭배하였다. 그러나 두 민족 모두 진리를 사랑하였다. 수세기 동안 그리스인들은 종교를 제외한 모든 인간 문제들—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철학적인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고 논의하였다. 종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그리스인은 거의 없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서도 매우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다. 수세기 동안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을 종교에 헌신하면서, 반면 다른 분야의 생각에는 무관심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매우 진지하게 여겼으며, 너무 진지하게 여겼다. 예수의 메시지의 내용에서 비추어지고 있듯이, 이 두 민족들의 여러 세기동안의 생각이 연합되어진 산물이 이제 인간 사회의 새로운 계층에, 어느 한도에서는, 인간의 종교적 믿음과 실천 관행의 새로운 계층에 추진력이 되었다.

195:1.7 (2071.7) 그리스 문명의 영향은 알렉산더가 그리스의 문명을 근동 지역에 퍼뜨렸을 때 이미 서부 지중해 지방에

침투해 들어갔다. 그리스인들은 작은 도시국가 안에 사는 동안에는 자신들의 종교와 자신들의 정치로 대단히 잘 행하였다. 그러나 마케도니아 왕이 그리스를 대담하게 하나의 제국으로 확대시키면서, 아드리아 해로부터 인더스 강까지 뻗어 나갔을 때 문제가 시작되었다. 그리스의 예술과 철학은 제국 확대의 과업과 충분히 동등하였지만, 그리스의 정치적 관리-행정이나 종교는 그렇지 못하였다. 그리스의 도시-국가가 제국으로 확대된 이후에, 상당히 지엽적인 그들의 하느님들은 다소 괴상하게 보였다. 오래된 유대 종교의 그리스도교화된 해석본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리스인들은 실제로 한분 하느님, 보다 위대하고 훌륭한 하느님을 찾고 있었다,

195:1.8 (2072.1) 이런 상태로 그리스 제국은 지탱될 수 없었다. 그 문화적 지배는 계속되었지만, 그러나 서방으로부터 제국의 관리-행정을 위한 로마의 정치적 재능이 확보되고,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제국의 존엄을 갖춘 한 분 하느님의 종교를 얻은 뒤에야, 비로소 오래 견디어냈다.

195:1.9 (2072.2) 그리스도 이후 첫 세기 동안에, 그리스 문화는 이미 최고 차원에 이르렀다; 그것의 쇠퇴기가 시작되었다;

학문은 발전하고 있었지만 창조적인 재능은 쇠퇴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교 안에 부분적으로 구현되어 있던, 예수의 관념과 이상이 그리스 문화와 학문의 구출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195:1.10 (2072.3) 알렉산더는 그리스 문명의 문화적 선물을 가지고 동방에 진격하였다; 바울은 예수의 복음의 그리스도교 해석본으로 서방을 공략하였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가 보급된 서방 전역의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는 그리스화된 그리스도교가 뿌리를 내렸다.

195:1.11 (2072.4) 예수의 메시지에 대한 동방 해석본은, 그의 가르침에 대하여 좀더 진실이 유지되긴 하였지만, 완고한 아브너의 태도를 계속 따랐다. 결코 그리스화된 해석본처럼 진보하지 못하였으며, 결국에는 이슬람 운동 안에서 없어지게 되었다.

제 2 장. 로마의 영향

195:2.1 (2072.5) 로마인들은 추첨에 의한 정부 대신에 대의(代議) 정부를 채택하면서 그리스 문화를 통째로 이어받았다. 그리고 로마가 모든 서방 세계에 생소한 언어들과 민족들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용을

가져왔다는 면에서, 이러한 변화는 곧바로 그리스도교를 유리하게 만들었다.

195:2.2 (2072.6) 로마에서의 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한 초기 박해의 대부분은 단지 그들이 불운하게 설교에서 사용한 “왕국”이라는 용어에서 기인되었다. 로마인들은 어떤 그리고 모든 종교들에 대해서 관대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경쟁의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분개하였다. 그러므로 대부분이 오해로 인하여 기인되었던 이러한 초기의 박해가 끝나게 되자, 종교적 포교활동을 위한 마당이 활짝 열렸다. 로마인은 정치적 관리-행정에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예술이나 종교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둘 모두에 이상스러운 만큼 관대하였다.

195:2.3 (2072.7) 동양의 법은 엄격하고 독단적이었고; 그리스의 법은 유동적이고 예술적이었다; 로마의 법은 위엄이 있고 존중심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로마의 교육은 전대미문의 무조건적인 충성을 가르쳤다. 초기의 로마인들은 정치적으로 헌신적이고 숭고하게 삶을 바치는 개별존재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상에 대해 성실하고

열정적이었으며 전념되었다. 그러나 이름에 걸 맞는 종교가 없었다. 그들의 그리스인 선생들이 그들에게 바울의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195:2.4 (2072.8) 그리고 이 로마인들은 아주 훌륭한 민족이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다스렸기 때문에 서양을 다스릴 수 있었다. 그러한 견줄 데 없는 정직, 헌신 그리고 굳센 자아-통제는 그리스도교가 받아들여지고 성장하는 데에 이상적인 토양이었다.

195:2.5 (2072.9) 이들 그리스-로마인들은 정치적으로 국가에 헌신하였었기 때문에, 제도적인 교회에 영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이 쉬웠다. 로마인들은 교회가 국가에 대한 경쟁자로서 그들이 두려워했을 때에만 교회와 싸웠다. 로마는, 민족의 철학이나 토착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를 자기 것으로 취하였으며, 그 도덕적인 철학으로 그리스도를 용감하게 받아들였다. 그리스도교는 로마의 도덕적 문화가 되었지만, 그렇게 도매방식으로 새로운 종교를 포용한 사람들의 영적 성장 안에서 개별적 체험이 된다는 의미로서는 도저히 로마의

종교가 되었다고 할 수 없었다. 사실 정말로, 많은 개별존재들이 모든 이 국가 종교의 표면 밑으로 파고들어왔고, 그들 혼의 영양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화 되고 이교화된 그리스도교의 잠재된 진리들 속에 들어있는 감추어진 의미들의 실제 가치들을 발견하였다.

195:2.6 (2073.1) 스토아 철학과 "자연과 양심"에 대한 그들의 억센 호소는, 적어도 지적인 감각에서, 모든 로마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잘 준비를 하였을 뿐이다. 로마인은 본성으로 그리고 훈련으로 법률가였다; 그들은 자연 법칙까지도 존경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교 안에서, 자연법칙 안에서 하느님의 율법을 식별해냈다. 키케로와 버질을 낳을 수 있었던 민족은 바울의 그리스화된 그리스도교를 위하여 무르익었다.

195:2.7 (2073.2) 그리하여 로마화된 이들 그리스인들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교인들 모두에게 그들의 종교를 철학화하고, 그것의 관념들을 조화-협동하고 그것의 이상들을 체계화시키고, 존재하고 있는 생명의 흐름에 종교적 실천 관행들을 적응시키도록 강요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히브리어 경전이 그리스어로 번역됨으로써,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됨으로써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다.

195:2.8 (2073.3) 그리스인들은, 유대인들이나 다른 많은 민족들과는 대조적으로, 오랫동안 잠정적으로 불멸, 죽음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생존되는 것을 믿어왔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교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리라는 것은 분명했다.

195:2.9 (2073.4) 그리스의 문화적 그리고 로마의 정치적 승리들의 상속은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문화로 지중해 땅들을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시켰다, 그리고 서방 세계를 하나의 하느님을 위하여 준비시켰다. 유대교가 이 하느님을 제공하였지만, 그러나 유대교는 이들 로마화된 그리스인들에게 종교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필로가 그들의 거부감을 완화시키는 것에 약간의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하나의 하느님에 대한 더 좋은 개념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으며, 그들은 준비된 듯이 그것을 포용하였다,

제 3 장. 로마 제국 아래에서

195:3.1 (2073.5) 로마의 정치적인 통치가 강화된 후,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전파된 후에, 그리스도교인들은 자신들이 한 분 하느님, 위대한 종교 개념을 가졌지만, 제국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그리스-로마인들은 그들에게 위대한 제국은 있지만, 제국 경배와 영적 통일에 합당한 종교적 개념으로써 섬길 수 있는 하느님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그리스도교인들은 제국을 받아들였고; 제국은 그리스도교를 수용하였다. 로마는 정치적 통치의 합일을 제공하였고; 그리스는 문화와 학문의 합일을 제공하였다; 그리스도교는 종교적 생각과 실천 관행의 합일을 제공하였다.

195:3.2 (2073.6) 로마는 제국의 보편성으로서 민족주의 전통을 극복하였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서로 다른 종족들과 국가들이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하나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195:3.3 (2073.7) 그리스도교는 로마에서 스토아 철학자의 활기찬 가르침들과 신비주의 예배종파들의 구원의 약속들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인기를 끌었다. 자신들의 언어 속에 "사심-없음"이라는 단어가 없는 영적으로 굶주린

민족에게, 그리스도교는 상쾌한 위로와 해방하는 힘으로 다가왔다.

195:3.4 (2073.8) 그리스도교에 가장 위대한 힘을 준 것은 그 신자들이 봉사의 삶을 살아갔던 길과 그리고 더욱이 격렬한 박해의 초기에 신앙을 위하여 그들이 죽으며 갔던 길이었다.

195:3.5 (2073.9) 그리스도의 어린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어린 아이를 원하지 않을 때, 특히 여자 아기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널리 퍼진 실천 관행을 곧 종식시켰다.

195:3.6 (2074.1) 그리스도교 경배의 초기 계획은 대부분이 유대인 회당으로 넘겨졌으며, 미트라신 경배 의식에 의해 수정되었다; 나중에, 많은 이교도의 허식이 더해졌다.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의 근간은 유대교로 개종한 그리스도교화된 그리스인들로 구성되었다.

195:3.7 (2074.2) 그리스도 이후 2세기는 세계의 전체 역사 중에서 좋은 종교가 서방 세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였다. 1세기 동안 그리스도교는 투쟁과 타협으로 뿌리를 내리고 급속히 퍼져나갈 준비를 스스로 하였었다.

그리스도교는 제국을 받아들였다; 제국은 나중에 그리스도교를 수용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종교의 전파를 위하여 위대한 시기였다. 종교적인 해방이 있었고; 여행이 보편화되었으며 생각은 족쇄가 채워지지 않았다.

195:3.8 (2074.3) 이미 시작된 도덕적 타락을 막거나 또는 이미 확정되고 확장되고 있는 인종 퇴보를 보상하기에 그리스화된 그리스도교를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는 영적 자극이 로마에 너무 늦게 임하였다. 이 새로운 종교는 제국화된 로마를 위한 문화적 필수품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보다 큰 의미에서 영적 구원의 수단이 되지 못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195:3.9 (2074.4) 아무리 훌륭한 종교라도, 정부의 관련사에서 개별존재의 참여 부족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로부터, 과도한 온정주의, 과중한 세금과 극심한 징수 폐해, 금을 고갈시키는 레반트족과의 불균형한 거래, 오락의 광기, 로마인들의 규범화, 여성의 쇠퇴, 노예와 민족의 타락, 육체적인 전염병, 그리고 거의 영적 불모지에 이르도록 제도화된 국가 교회로부터, 위대한 제국을 구할 수는 없었다.

195:3.10 (2074.5) 그렇지만, 알렉산드리아의 상황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다. 초기의 학교들은 손상되지 않은 많은 예수의 가르침들을 지켜 나갔다. 판타에누스는 클레멘트를 가르친 후에 인도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로 나다니엘을 따라 갔다. 그리스도교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예수의 이상들 중 일부분이 희생된 반면에, 공평하게 말해서, 2세기말 경에. 실천적으로 그리스-로마 세계의 모든 위대한 마음의 소유자들은 그리스도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기록되어야 한다. 승리는 완성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195:3.11 (2074.6) 그리고 로마제국이 나중에는 몰락하였지만 그리스도교가 생존을 보장받기에 충분할 만큼, 그 제국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만일 받아들여진 것이 그리스적 그리스도교 대신에 왕국 복음이었다면 로마와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지를 종종 추측해보곤 한다.

제 4 장. 유럽의 암흑 시대

195:4.1 (2074.7) 사회의 부속물이 되고 정치와 동맹자가 된 교회는 필연적으로 소위 유럽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지적 그리고

영적 쇠퇴를 함께 나눌 처지에 놓여졌다, 이 기간 동안, 종교는 점점 더 수도원과 같이 은둔적이 되고, 금욕적이고 법제화 되었다. 영적인 면에서, 그리스도교는 동면(冬眠)하고 있었다. 이 기간에 두루, 이러한 무기력하고 세속화된 종교에 발맞추어서, 신비주의의 계속적인 흐름, 비실체성이며 철학적으로는 범신주의와 동족인 것과 거의 접하고 있는, 공상적인 영적 체험이 존재하였다.

195:4.2 (2074.8) 이러한 어둡고 절망적인 세기들 동안, 실질적으로 종교는 다시 중고품이 되었다. 교회의 뒤덮는 권위와 전통 그리고 지시 앞에서 개별존재는 거의 없어졌다. 신성한 재판정에 계신 하느님들에게, 만일 효과적으로 호소하려면, 하느님들 앞에 사람을 대신하여 탄원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러므로, 특별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기라성 같은 "성자" 집단의 창조라는 새로운 영적 위협이 나타났다.

195:4.3 (2075.1)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암흑기를 막아내기에는 무기력하였지만, 충분히 사회화 되고 이교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오랜 기간의

도덕적 어둠과 영적 침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다 잘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서방 문명의 긴 밤이 지나는 동안 존속되었으며, 문예부흥이 밝아온 세계에서조차 여전히 도덕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암흑기가 지남을 뒤 따라 일어난 그리스도교의 재건은 특별한 지적, 감정적, 그리고 인간 개인성의 영적 유형에 적합한 여러 분파들의 그리스도교적 가르침과 믿음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많은 이러한 특별한 그리스도교인 집단들, 다시 말해 종교적 계보들이 이 발표를 작성하고 있는 시간에도 아직 잔존(殘存)하고 있다.

195:4.4 (2075.2)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종교가 예수에 관한 종교로 뜻하지 않게 변환시킨 데서 기원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화, 이교화, 세속화, 제도화, 지적 퇴보, 영적 타락, 도덕적 동면, 위협하는 종말, 나중의 회생, 분열,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상대적(相對的) 부흥을 겪은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족보는 선천적 생명력과, 강한 회복력의 자원을 소유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도교가 서양 사람의 문명세계 속에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지배권을 위한 지난날의 싸움으로 특징 지워지는 그러한 저들 사건 많은 위기보다도 훨씬 더 심상치 않은, 실존을 위한 투쟁과 마주하고 있다.

195:4.5 (2075.3) 종교는 새로운 시대의 과학적 마음과 물질주의적 성향들의 도전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의 거대한 투쟁 속에서, 예수의 종교는 결국에는 승리를 거둘 것이다.

제 5 장. 현대의 문제점

195:5.1 (2075.4) 20세기는 그리스도교와 다른 모든 종교들이 풀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사회를 인정시키고 그것의 물질적인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려는 사람의 모든 노력 속에서 “먼저 하늘의 실체들을 찾는” 의무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195:5.2 (2075.5) 진리는 분할되고, 격리되고, 고립되고, 너무 심하게 분석될 때, 혼돈되고 그리고 오도(誤導)되기까지 한다. 살아있는 진리는, 물질적 과학의 사실이나 중재하는 기술의 영감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실체로서 그리고 한 덩어리 안에서 포용될 때에만 진리를 찾는 자들을 바르게 가르친다.

195:5.3 (2075.6) 종교는 사람에게 그의 신성하고 영원한 운명의 계시이다. 종교는 순전히 개인적이고 영적 체험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람의 다른 높은 생각의 형태와 언제까지나 구별되어야만 한다:

195:5.4 (2075.7) 1. 물질적 실체의 사물들에 대한 사람의 논리적인 태도.

195:5.5 (2075.8) 2. 추한 것과 대비된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의 심미적인 깊은 이해.

195:5.6 (2075.9) 3. 사람의 사회적 책무와 정치적 의무에서의 윤리적 인지(認知).

195:5.7 (2075.10) 4. 종교적이거나 그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닌, 인간 도덕성에 대한 사람의 감각.

195:5.8 (2075.11) 종교는 신앙과 신뢰 그리고 확신을 불러내는 가치들을 우주에서 발견하도록 예정되었다; 종교는 경배 속에서 절정을 이룬다. 종교는 마음에 의하여 발견된 상대적 가치들과는 대조가 되는 이러한 최극의 가치들을 혼을 위하여 발견한다. 그러한 초인간적 통찰력은 참된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만 소유될 수 있다.

195:5.9 (2075.12) 영적 실체들에 입각한 도덕이 없이 지속되는 사회체제는 중력 없는 태양계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욱 더 유지될 수 없다.

195:5.10 (2076.1) 육신으로 사는 한 번의 짧은 일생에서, 호기심을 채우려 하거나 또는 혼 안에서 솟구치는 모든 잠재된 모험을 만족시키려고 시도하지 말라. 인내하라! 저속하고 비열한 모험에 멋대로 돌진하는 탐닉에 유혹되지 마라. 너의 에너지에 마구를 채우고 너의 정열에 굴레를 씌워라; 진보적인 모험과 감동적인 발견의 끝없는 생애가 장엄하게 전개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침착하여라.

195:5.11 (2076.2) 사람의 기원에 대한 혼란으로, 그의 영원한 운명을 보는 것을 놓치지 말라. 예수가 어린아이들까지도 사랑하였던 것과, 인간 개인성의 위대한 가치를 언제까지나 분명하게 한 것을 잊지 마라.

195:5.12 (2076.3) 너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너희가 보는 악의 검은 조각들은 궁극적 선의 하얀 바탕에 대비하여 보인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그저 악의 검은 바탕에 대비하여 초라하게 나타나는 선의 흰 조각들만을 보지 마라.

195:5.13 (2076.4) 널리 알리고 그리고 전파해야할 그렇게 많은 진리가 있는 때, 왜 사람들은 단지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세상에서 악에 그렇게 많이 유의해야만 하는가? 진리의 영적 가치들의 아름다움(美)은 악의 현상보다 더욱 즐겁고 고양하는 것이다.

195:5.14 (2076.5) 종교에서, 현대 과학이 실험 기법을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는 체험의 방법을 옹호하고 따르셨다. 우리는 영적 통찰력의 인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발견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 진리의 추구, 의무에 충실함, 그리고 신성한 선에 대한 경배를 통하여 이 혼의 통찰력에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가치 중에서, 사랑이 진정한 통찰력으로 인도하는 실제 안내자이다.

제 6 장. 물질주의

195:6.1 (2076.6) 과학자들은 뜻하지 않게 인류를 물질주의적 공황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쌓아온 도덕의 은행에 생각 없는 외상을 달아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인간 체험의 은행은 광대한 영적 자원들을 갖고 있다; 그것은 그 위에 매겨져있는 청구들을 대처할 수 있다, 오직

생각 없는 사람들만이 인간 종족의 영적 자산들에 대하여
공황상태가 되어간다. 물질주의적-세속적 공황이 끝나면,
예수의 종교가 파산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왕국의 영적 은행은 “그의 이름으로” 그것에
구하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과 소망 그리고 도덕적
보증을 지불해줄 것이다.

195:6.2 (2076.7) 물질주의와 예수의 가르침 사이에 어떤 명백한
충돌이 있던지 간에, 너희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주(主)의 가르침이 충분히 승리할 것을 안심하고 있어도
된다. 실체 안에서, 참된 종교는 과학과의 어떤 논쟁에도
휘말리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물질적인 것에 관여하지 않는다. 종교는 과학에 대해
간단하게 개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깊은 공감을 가지며,
한편으로는 종교 자체는 과학자와 최극으로 관계하고
있다.

195:6.3 (2076.8) 지혜에서의 필연적인 해석과 종교적 체험에서의
영적 통찰력이 없는, 단순한 지식 추구는 결국에는
염세주의와 인간 절망으로 인도한다. 작은 지식은 정말로
혼란스럽게 한다.

195:6.4 (2076.9) 이것을 쓰고 있는 시기에, 물질주의적 시대의 최악은 지나갔다. 보다 증진된 납득의 날이 이미 밝기 시작하였다. 과학적 세계의 더 높은 차원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들의 철학에서 이제 더 이상 전적으로 물질주의적이 아니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은 이전의 가르침들로 인하여 여전히 그 방향으로 기울어져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사실주의 시대는 이 땅에서의 사람의 일생에서 지나가는 에피소드에 불과할 뿐이다. 현대 과학은 참 종교를—그의 신자들의 삶 속에서 전환된 예수의 가르침들을—다치지 않고 남겨 놓았다. 과학이 이룩한 모든 업적은, 일생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나온 유치한 환상을 깨뜨려버렸다는 것이다.

195:6.5 (2077.1)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일생에 관하여 볼 때, 과학은 양적 체험이며, 종교는 질적 체험이다. 과학은 현상을 다룬다; 종교는 기원과 가치 그리고 목표를 다룬다. 원인들을 물리적 현상의 설명으로 돌리는 것은 궁극의 것들에 대한 무지를 고백하는 것이며 그리고 끝에 가서는 과학자들을 처음 위대한 원인자—파라다이스의 우주 아버지—에게로 곧바로 되돌아가도록 인도할 뿐이다.

195:6.6 (2077.2) 기적의 시대로부터 기계의 시대로의 격렬한 이동은 사람에게 전적으로 당황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 기계론의 그릇된 철학의 영리함과 교묘함은 바로 그 기계론적 주장이 거짓임을 나타낸다. 물질주의자 마음의 숙명론적인 기만성은 우주가 제멋대로이고 목적이 없는 에너지 현상이라는 그의 주장들이 그릇되고 있다는 것을 언제까지나 증명하고 있다.

195:6.7 (2077.3) 필경 상당한 교육을 받았을 사람들의 기계론적 자연주의와, 거리에 흔히 있는 사람의 생각 없는 세속주의는 둘 모두 오로지 사물에만 관심을 둔다; 그들에게는 모든 실제 가치, 신성한 규약, 그리고 영적 본성에서의 만족이 알맹이를 이루지 못하며, 신앙과 소망 그리고 영원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 현대생활에서의 커다란 문제들 중의 하나는 사람이 자신이 너무 바빠서 영적 명상과 종교적인 헌신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95:6.8 (2077.4) 물질주의는 사람을 혼이 없는 자동 장치로 축소하고, 그리고 그를 낭만도 없고 기계적인 우주의 수학 공식 안에서, 어떤 도움도 없는 위치를 찾아내고 있는,

단순한 산술적 상징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나 수학의 이 모든 광대한 우주는 주(主) 수학자가 없이 어디에서 오는가? 과학은 질량의 보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 있겠지만, 종교는 사람들의 혼이 보존되는 것을 입증한다.—그것은 영적 실체들과 영원한 가치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체험에 관련되어 있다.

195:6.9 (2077.5) 오늘날의 물질주의적 사회학자들은 공동체를 조사하고, 곧바로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발견했던 그대로 사람을 내버려둔다. 1,900년 전에, 배움이 없는 갈릴리인은, 사람의 내적 체험에 대한 영적 기여로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있는 예수를 조사하였고, 그리고 나서는 밖으로 나갔고, 그리고 로마제국 전체를 뒤집어버렸었다.

195:6.10 (2077.6) 그렇지만, 종교적 영도자들은 중세 시대의 나팔소리로 현대인들을 영적 전쟁터로 불러내려고 시도하는 큰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종교는 새로운 최첨단의 표어들을 준비해야만 한다.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정치적 만병통치약이라도 영적 진보를 대신하지 못할 것이다. 거짓된 종교들은 실체에서의

회피를 내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는 그의 복음에서 필사 사람을 영적 진보의 영원한 실체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로 선포하였다.

195:6.11 (2077.7) 마음이 물질로부터 “창발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만약에 우주가 단지 기능구조이고 마음이 물질과 구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관찰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다른 두개의 해석들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진리(眞)와 아름다움(美) 그리고 선(善)에 대한 개념들은 물리학이나 화학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다. 기계는 진리, 옳은 것에 대한 굶주림, 그리고 선의 소중함에 대해 알 수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

195:6.12 (2077.8) 과학은 물리적일 수 있지만, 진리를 식별하는 과학자의 마음은 동시에 초(超)물질적이다. 물질은 진리를 모른다, 그것은 자비를 사랑하거나 영적 실체들로 즐길 수도 없다. 영적 깨우침에 기초되고 인간 체험에 뿌리를 둔 도덕적 신념들은 물리적 관찰들에 기초한 수학적 추론들과 같이 실제적이며 확실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그리고 더 높은 차원에 근거한다.

195:6.13 (2077.9) 만약에 사람들이 단지 기계들이라면, 물질적인 우주에 대해 거의 동일하게 반응할 것이다. 개별존재성은 비(非)실존으로 될 것이며, 개인성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195:6.14 (2077.10) 우주들의 우주의 중심에 있는 파라다이스가 절대적 기능구조라는 사실은, 둘째근원이며 중심의 분별불가적인 의지의 현존 안에서, 결정자들이 조화우주에서의 배타적 법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까지나 확실하게 만든다. 물질주의가 있다, 그러나 배타적이 아니다; 기능구조가 있다, 그러나 분별불가적이 아니다; 결정론이 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다.

195:6.15 (2078.1) 물질의 유한 우주는 마음과 영의 병합된 현존이 없다면, 결국에는 균일해지고 그리고 결정론으로 될 것이다. 조화우주 마음의 영향은 물질세계 속이라 해도 끊임없이 자발성을 주입한다.

195:6.16 (2078.2) 실존의 어느 영역에서도 자유나 진취성은 영적 영향과 조화우주-마음 통제의 정도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그것은 인간 체험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실재성의 정도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단

하느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이미 너희를 발견하였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인 것이다.

195:6.17 (2078.3) 선(善)과 아름다움(美) 그리고 진리(眞)에 대한 진지한 추구는 하느님께로 인도한다. 그리고 모든 과학적 발견은 우주 속에 자유와 균일성이 둘 모두 실존하고 있음을 실증한다. 발견자는 발견할 자유가 있었다. 발견된 사물은 실제이고 명백히 균일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물로서 알려질 수 없었을 것이다.

제 7 장. 물질주의의 취약성

195:7.1 (2078.4) 물질적-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능구조적인 기계론 우주와 같은 그렇게 취약한 이론들로 하여금 그에게서 참된 종교에서의 개인적 체험의 광대한 영적 자원들을 빼앗아 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사실들은 결코 실제적인 영적 신앙과 다투지 않는다; 이론들은 그럴 수 있다. 과학은 종교적인 신앙—영적 실체들과 신성한 가치들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전복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신을 타파하는데 헌신하는 것이 좋다.

195:7.2 (2078.5) 종교가 사람을 위하여 영적으로 하는: 일생의 지평을 넓히고 그의 개인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과학은 그를 위하여 물질적으로 해야 한다. 참된 과학은 참된 종교와 계속되는 대립관계를 가질 수 없다. "과학적인 방법"은 단지 물질적인 모험들과 물리적인 성취들을 재는 지적 척도이다. 그러나 물질적이고 그리고 전적으로 지적으로 되는 것은, 영적 실체들과 종교적 체험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전혀 쓸모가 없다.

195:7.3 (2078.6) 현대 기계론자의 모순은 다음과 같다: 만약 이것이 단지 물질적 우주이고 사람은 단지 기계라면, 그러한 사람은 그 자신을 그런 기계로 인식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기계적-사람은 그러한 물질적 우주의 실존 사실을 결코 의식할 수 없을 것이다. 기계론적 과학의 물질주의적 낙담과 절망은, 물질주의적 우주에 대한 이들 잘못된 판단과 자아-모순의 개념들을 형성한 바로 그 초(超)물질적 통찰력을 지닌, 과학자의 영이-내주된 마음의 사실에 대해 인지하는 것에 실패해 온 것이다.

195:7.4 (2078.7) 영원과 무한의, 진리(眞)의, 아름다움(美), 그리고 선에 대한 파라다이스 가치들은 시간과 공간 우주 현상의 사실들 속에 숨겨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가치들을 감지하고 분간하기 위해서는, 영으로-태어난 필사자 안에 있는 신앙의 눈이 필요하다.

195:7.5 (2078.8) 영적 진보의 실체와 가치들은 단순히 물질적 마음에서의 영화롭게 꾸민 백일몽-어떤 "정신적인 구체적인 투사 활동"이 아니다. 그러한 일들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살고 있는 하느님 영, 내주하고 있는 조절자의 영적 조짐이다. 그리고 "상대성"을 발견해 내는 어렵פות한 이해와 가벼운 접근으로 하느님의 영원성과 무한성에 대한 너희 개념이 혼란을 겪도록 하지 말라. 그리고 자아-표현의 필요성과 관련되는 너희의 그 모든 간절한 탐구가, 너의 실제적이고 더욱 나은 자아의 현시활동, 조절자-표현을 제공하려는 데에 실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라

195:7.6 (2079.1) 만약 이것이 단지 물질적 우주이었다면, 물질적 사람은 결코 그러한 배타적으로 물질적인 실존에서의 기계론적 성격 개념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우주의 기계론적 개념 그 자체가 마음의 비물질적 현상이다, 모든 마음은, 비록 그것이 아무리 속속들이 물질적으로 제약을 받고 기계적으로 통제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비물질적 기원에서 비롯한다.

195:7.7 (2079.2) 필사 사람의 부분적으로 진화된 두뇌 정신적 기능구조는 일관성과 지혜가 철저하게 자질로서 부여 받은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자만심은 종종 그의 이성을 뛰어넘고 그리고 그의 논리를 교묘하게 피해서 빠져나간다.

195:7.8 (2079.3) 가장 비관론적인 물질주의자의 바로 그 비관주의는, 자체적으로 그리고 저절로, 비관주의자의 우주가 전적으로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는 둘 모두 사실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치에 대한 마음 의식 안에서의 개념 반응들이다. 만일 우주가 정말로 물질주의자들이 그것이 그러하다고 간주하는 것이었다면, 그러면 인간 기계로서의 사람은 바로 그 사실에 대한 모든 의식적 자각이 결여되어 있어야만 한다. 영으로 태어난 마음속에 가치들에 대한 개념의 인식이 없다면, 우주 물질주의의

사실과 우주 운행의 기계론적 현상은 절대로 사람에 의해 감지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의 기계는 다른 기계의 본성이나 가치를 인식할 수 없다.

195:7.9 (2079.4) 과학은 오직 물질들과 사실들만을 인지하고 취급하기 때문에 생명과 우주에 대한 기계론적 철학은 과학적이 될 수 없다. 철학은 필연적으로 초(超)과학적이다. 사람은 자연의 물질적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자연의 물질적 차원들을 초월하는 현상이며, 그 속에서 마음의 통제 속성들과 영의 창조적 본질특성을 나타낸다.

195:7.10 (2079.5) 사람이 기계론자가 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은 지적 그리고 도덕적 자살을 저지르려고 사람의 헛된 노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비극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195:7.11 (2079.6) 만일 우주가 오직 물질적이고 그리고 사람이 단지 기계였다면, 과학자들에게 우주의 기계화에 대한 가정을 세우도록 용기를 붓 주는 과학이 없었을 것이다. 기계들은 측정하거나 구분하거나 또는 스스로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한 과학적 작업은 초(超)기계적 지위의 실존개체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195:7.12 (2079.7) 만약에 우주 실체가 단지 하나의 거대한 기계이라면, 사람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러한 평가의 통찰력을 의식하기 위하여는, 우주 밖에 있어야만 하며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만 한다.

195:7.13 (2079.8) 만약에 사람이 단지 기계이라면, 도대체 어떤 기법으로 이 사람이 그는 단지 기계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또는 안다고 주장하는가? 자신의 자아에 대한 자아-의식적인 평가의 체험은 단순한 기계의 속성이 결코 아니다. 자아-의식적이고 그러면서 스스로 공언하는 기계론자가 기계론에 대한 가능한 최선의 대답이다. 만약에 물질주의가 사실이었다면, 자아-의식적인 기계론자는 결코 있을 수 없었다. 어떤 자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그 전에 먼저 그 자는 도덕적 개인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또한 참말이다.

195:7.14 (2079.9) 물질주의의 바로 그 주장이 그렇게 독단을 주장하도록 추정하는 마음의 초(超)물질적 의식을 암시한다. 기계론은 나빠질 수는 있지만, 결코 진보할 수는

없다. 기계는 생각하거나, 창조하거나, 꿈을 꾸거나, 포부를 가지거나, 이상화하거나, 진리에 굶주리거나, 또는 올바른에 목마를 수 없다. 그것들은 다른 기계들에게 봉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진보의 목표로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와 같이 되려고 분투하는 숭고한 과업을 선택하도록 열정으로 그들의 삶을 자극하지 않는다. 기계들은 결코 지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심미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또는 영적이 아니다.

195:7.15 (2079.10) 예술은 사람이 기계론적 존재가 아님을 증명한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영적으로 불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 예술은 필사자의 모른시아이며, 물질적인 것, 사람과 영적인 것, 사람사이에 개재(介在)되는 분야이다. 시(詩)는 물질적 실체에서 영적 가치로 달아나려는 노력이다.

195:7.16 (2080.1) 높은 문명에서는, 예술은 과학을 인간화 시키고, 반면에 그것은 진실한 종교—영적이고 영원한 가치들에 대한 통찰—에 의해 영성화된다. 예술은 인간과 실체의 시간-공간적인 평가를 묘사한다. 종교는 조화우주 가치들의 신성한 포용이다 그리고 영적 상승과 확대를

영원한 진보를 내포한다. 시간의 예술은 영원이 시간의 실체 그림자들로서 반영하는 신성한 원형틀의 영적 표준에 장님이 될 때에만 위험하다, 참된 예술은 일생에서의 물질적 사물의 효력적인 조종이다; 종교는 일생의 물질적인 사실들의 고상한 변환이다, 그리고 그것은 예술에 대한 스스로의 영적 평가 안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195:7.17 (2080.2) 자동장치가 자동화주의 철학을 생각해 낼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그리고 동료 자동장치들의 개념을 형성한다고 추정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195:7.18 (2080.3) 과학자에게 정당한 인정이 고려되지 않으면 물질 우주에 대한 어떤 과학적 해석도 무가치하다. 예술가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예술의 깊은 감상은 참된 것이 아니다. 도덕주의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도덕에 대한 어떤 평가도 보람이 없다. 철학자를 무시한다면, 철학의 인식이 덕성을 북돋우지 못한다, 그리고 종교는 종교가가 자신의 체험 속에서 그리고 체험을 통하여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를 알려고 노력하는, 바로 종교가의 그

실제적인 체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주들의 우주는 스스로 이신 이, 그것을 만드셨고 그것을 끊임없이 관리하는 무한 하느님과 동떨어져서는 의의(意義)가 없다.

195:7.19 (2080.4) 기계론자들—인본주의자들—은 물질적 흐름에 따라서 떠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이상주의자들과 영성주의자들은 에너지 흐름줄기들의 명백하게 순수한 물질적 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능과 활력으로 감히 그들의 노를 사용하려 한다.

195:7.20 (2080.5) 과학은 마음에서의 수학으로 살아간다; 음악은 감성에서의 박자를 표현한다. 종교는 무한에서의 더 높고 영원한 선율에 대한 측정의 시간-공간 조화 안에 있는 혼의 율동이다. 종교적 체험은 인간의 일생 속에서 진실로 초(超)수학적인 그 무엇이다.

195:7.21 (2080.6) 언어에서, 알파벳은 물질주의의 기능구조를 대표한다. 반면에 수많은 생각, 커다란 관념, 그리고 고상한 이상의—사랑과 미움에서의, 비겁함과 용기에서의—의미를 표현하는 말들은, 물질적이며 동시에 영적인 법칙에 의해 정의되고, 개인성의 의지가 주장하는

바에 의해 지도를 받으며, 그리고 선천적인 상황에서의 자질에 따라 제한받는 범위 안에서, 마음의 행위들을 묘사한다.

195:7.22 (2080.7) 우주는 과학자가 발견하는 그리고 그가 과학이라고 여기게 되는 법칙, 기능구조 그리고 균일성 같은 것이 아니다. 아니 그것은 오히려 우주 현상을 관찰하고 그리고 창조의 물질측면의 그 구조적 위상에 선천적으로 들어있는 수학적 사실을 분류해 내는 그러한 호기심이 강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창조적이고, 병합하고 그리고 분간해 내는 그 과학자들과 같다. 또한 우주는 예술가의 예술과는 다르다, 그러나 오히려 영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으로 물질적 사물들의 세계를 초월하려고 애쓰는, 분투하고, 꿈꾸며, 열망하고, 전진하는 예술가와 같다.

195:7.23 (2080.8) 과학이 아니고, 과학자가 에너지와 물질의 진화하고 진보하는 우주의 실체를 감지한다. 예술이 아니고, 예술가가 물질적 실존과 영적 해방 사이에 개재하는 과도기 모론시아 세계의 실존을 실증한다.

종교가 아니고, 종교가가 영원한 진보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영적 실체들과 신성한 가치들의 실존을 증명한다.

제 8 장. 세속적인 전체주의

195:8.1 (2081.1) 그러나 물질주의와 기계론이 얼마큼 정복되어진 이후라 할지라도, 20세기 세속주의의 지독한 영향은, 수백만의 영문을 모르는 혼의 영적 체험들을 여전히 망치게 할 것이다.

195:8.2 (2081.2) 현대 세속주의는 두 가지의 범세계적인 영향에 의해 육성되고 있다. 세속주의의 아버지는 소위 과학—무신론적 과학이라고 하는 19세기와 20세기의 편협하고도 하느님이 없다는 태도였다. 현대 세속주의의 어머니는 전체주의적 중세(中世) 그리스도교 교회였다. 세속주의는 제도화된 그리스도교 교회에 의한 서방 문명의 거의 완벽한 지배에 대항하여 일어난 불복으로 발단이 되었다.

195:8.3 (2081.3) 이 계시의 때에, 유럽인과 아메리카인의 생활에서 유행하는 지적 그리고 철학적 풍조는 단연코 세속적—인본주의적이다. 서방의 사고(思考)는 300년 동안 점차적으로 세속화되어 왔다. 종교는 점점 더

명목상의 영향, 주로 의식적인 행사가 되었다, 서방 문명에서의 자칭 그리스도교인들의 대부분은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실재적인 세속주의자이다.

195:8.4 (2081.4) 사람을 시들게 하는 전체주의 교회의 지배의 손아귀에서 서방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데는, 커다란 힘, 강력한 영향이 필요하였다. 세속주의는 교회의 통제하는 속박을 깨트렸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 차례로 그것이 현대인들의 가슴과 마음 위에 새롭고도 하느님 없는 유형의 지배력을 확립하려고 위협하고 있다. 압제와 독재적인 정치 형태는 과학적 물질주의와 철학적 세속주의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세속주의는 제도화된 교회의 지배로부터 사람을 자유롭게 하자마자, 그것은 사람을 노예처럼 사슬에 묶어 전체주의 국가에 팔았다. 세속주의는 사람을 단지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노예상태의 압제로 팔기 위하여 교회의 노예 신분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고 있다.

195:8.5 (2081.5) 물질주의는 하느님을 부인한다, 세속주의는 단순히 그를 무시한다; 적어도 그것이 초기의 태도였다. 더욱 최근에는, 세속주의는 그것이 한 때 종교의

전체주의적 속박에 저항하였던 그 종교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듯이, 더욱 투쟁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다. 20세기의 세속주의는 사람은 하느님이 필요 없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심해라! 인간 사회에서의 하느님이 없는 이 철학은 오직 불안, 증오, 불행, 전쟁, 그리고 범세계적 재난으로 이끌 것이다.

195:8.6 (2081.6) 세속주의는 인류에게 결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인간 사회에서 하느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잘 주목해라! 교회의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세속적인 반항의 은혜로운 수익들에 성급하게 굴복하지 말라. 서방 문명은 세속적인 반항의 결과로, 오늘날 많은 해방과 만족을 누리고 있다. 세속주의의 엄청난 오류는 이것 이었다; 종교의 권위에 의해서 일생의 거의 전부가 통제되는 것에 대항하여 반항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횡포로부터 자유를 획득한 후에, 세속주의자들은 하느님 자신에게 대항하는 반항하도록, 때로는 잠잠하게 그리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조성하며 계속 나아간 것이었다.

195:8.7 (2081.7) 너희는 미국 산업주의의 놀라운 창조성과 그리고 서방 문명의 전례 없는 물질적 진보를 이룩하게 한 세속주의 반기(叛起)에 빛을 지고 있다. 그리고 세속주의의 반기가 너무 멀리 갔고 그리고 하느님과 참된 종교에 대한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계 전쟁과 국제적 불안정의 예기치 못한 결과가 또한 뒤 따라 발생되었다.

195:8.8 (2081.8) 현대 세속주의 반기에서의 축복, 관용, 사회적 봉사, 민주적 정부, 그리고 시민의 해방을 누리기 위하여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희생시킬 필요는 없다. 과학을 증진시키고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속주의자들이 참 종교에 반목을 일으킬 필요는 없었다.

195:8.9 (2082.1) 그러나 세속주의가 생활의 확장에서의 모든 이러한 최근 수익에서의 유일한 본원은 아니다. 20세기의 수익 이면에는 과학과 세속주의 만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일생과 가르침들의 인지되지 않은 그리고 인정받지 않은 영적 작용들이 있다.

195:8.10 (2082.2) 하느님 없이, 종교가 없이, 과학적인 세속주의는 결코 그 기세들을 조화-협동할 수 없고, 그것의 다양하고도

경쟁적인 관심들, 종족들, 그리고 민족주의들을 조화시킬 수 없다. 이러한 세속주의의 인간사회는, 비교할 수 없는 물질주의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분열되고 있다. 이러한 반목에서의 집대성-해체를 막는 가장 주된 응집력 있는 기세는 민족주의이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세계평화의 가장 주된 장애물이다.

195:8.11 (2082.3) 세속주의의 선천적인 결점은 정치와 힘을 위하여 윤리와 종교를 무시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면서, 사람들의 형제신분을 절대로 이룩할 수 없다.

195:8.12 (2082.4) 세속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낙관주의는 환상이다. 하느님 없이는, 자유나 해방도, 재산이나 풍요도 평화로 인도할 수 없다.

195:8.13 (2082.5) 과학, 교육, 산업, 그리고 사회의 완벽한 세속화는 오직 재난으로 인도할 수 있을 뿐이다. 20세기의 초반 1/3 기간 동안, 유란시아인 들은 그 때 까지 전체 그리스도교 섭리시대 동안에 죽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리고 이것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무시무시한 추수의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더욱 끔찍한 파괴는 이제부터 다가올 것이다.

제 9 장. 그리스도교의 문제

195:9.1 (2082.6) 너희의 영적 유산, 물질주의적 그리고 세속 시대의 불모의 시절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기를 통하여 흘러내리고 있는 진리의 강의 가치를 간과하지 말라. 지나간 시대들의 미신 신조들로부터 벗어나려는 너희의 온갖 값진 노력을 기울이면서, 너희가 영원한 진리를 견고히 붙잡고 있음을 확실히 하라. 그러나 인내하라! 현재의 미신 반기가 지나가면, 예수의 복음의 진리들이 새롭고 더 좋은 길을 비추기 위하여 영광스럽게 지속될 것이다.

195:9.2 (2082.7) 그러나 이교화 되고 사회화된 그리스도교는 손상되지 않은 예수의 가르침들과 새롭게 접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세상에서 주(主)의 일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모자란다는 것이 서글프다. 예수의 종교에 대한 새롭고도 보다 충분한 계시가 물질주의적 세속주의의 제국을 정복하고 그리고 물질주의적 자연주의의 세계 지배를 타도하도록 운명되어있다. 유란시아는 이제

사회적 재조절, 도덕적 소생(蘇生), 그리고 영적 깨우침의 가장 놀랍고 그리고 매혹적인 신(新)시대들 중의 하나의 바로 그 고비에서 지금 떨고 있다.

195:9.3 (2082.8) 예수의 가르침들은, 비록 크게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그들 탄생시절의 신비 예배종파들, 암흑기의 무지와 미신에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는 20세기의 물질주의, 기계론, 그리고 세속주의에 대하여 서서히 승리하고 있다. 그리고 큰 시험과 패배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시기는 항상 위대한 계시가 내리는 시기이다.

195:9.4 (2082.9) 종교는 새로운 영도자들, 예수와 그의 비할 데 없는 가르침에만 오로지 용감하게 의존하려는 영적 남자와 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만약에 그리스도교가 사회적이고 물질적 문제에 계속 바쁘게 일하면서 자신의 영적 임무에 게으름을 끈질기게 지속한다면, 영적 부흥은 오로지 사람의 영적 쇄신에만 헌신할 수 있는 예수의 종교에 대한 이들 새로운 선생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그런 다음에, 영으로-태어난 이들 혼들은 세상의 사회적, 도덕적, 경제적, 정치적 재조직에 필요한 영도자관계와 영감(靈感)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다.

195:9.5 (2083.1) 현대는 사실들과 모순되고, 그리고 진리(眞), 아름다움(美). 그리고 선(善)의 최고 개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종교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것이다. 지금-현재의 왜곡되고 수치스럽게 타협된 그리스도교에 대한 참되고 근본적인 기초들—예수의 실제 일생과 가르침들—을 다시 발견할 시간의 종이 울리고 있다.

195:9.6 (2083.2) 원시인은 종교적인 두려움에 미신적 속박의 일생을 살았다. 현대의 문명인들은 강력한 종교적 신념의 지배 아래에 붙잡힌다는 생각에 두려워한다. 사색하는 사람은 종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항상 염려해왔다. 강력하고 감동시키는 종교가 사람을 지배하려고 위협할 때, 그는 변함없이 그것을 합리화, 전통화, 그리고 제도화하려고 시도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그에 대한 통제를 얻으려고 바라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 따라서, 계시 종교조차도 사람이-만든 사람이- 지배하는 것으로 된다. 현대의 남녀 지능존재들은 예수의 종교가 자신들에게—그리고 자신들을 가지고—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회피한다. 그리고 그런 모든 두려움에는 모두 그럴만한 근거를 지니고 있다. 예수의 종교는, 정말로 그 신자들을 지배하고

변환시키는데,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대한 앎을 추구하는 데에 자신들의 일생을 바치도록 요구하며, 삶의 에너지를 사람의 형제신분의 사심-없는 봉사에 바치는 것이 필요하다.

195:9.7 (2083.3) 이기적인 남자와 여자들은 필사 사람에게 제공된 가장 위대한 영적 보물에 대하여서도 결코 그러한 값을 치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고 현혹시키는 이기심의 추구에 수반되는 비참한 실망감으로 사람이 충분히 환멸을 느끼게 되고, 뒤이어 형식화된 종교의 불모지를 발견하고 난 후에야, 오직 미몽에서 깨어나기에 충분하게 될 것이고, 그는 왕국 복음, 나사렛 예수의 종교로 전심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195:9.8 (2083.4) 세상은 더욱 더 손을 거치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종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교—20세기의 종교 중에서 최고—조차도 단지 예수에 관한 종교일 뿐이며, 더구나 스쳐간 사람의 손길을 너무도 많이 체험하고 있는 종교다. 사람들은 그들의 인정된 종교 교사들이 전해주는 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다. 만일 실제로 이 세상에 사셨던 원래 그대로의 예수를 볼 수 있고, 생명을 주는 그의

가르침들을, 손을 거치지 않은 원래 그대로를 알게만 된다면, 세상은 얼마나 큰 깨우침을 체험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사물을 묘사하는 말이 그것을 직접 보는 것만큼 전율을 줄 수 없으며, 또한 교리 말씀이 하느님의 현존을 아는 체험만큼 사람의 혼에 영감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기대하는 신앙은, 저 건너 세상들에서의 신성한 가치의 영원한 영적 실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람의 혼에 있는 소망의-문을 언제나 활짝 열어 놓을 것이다.

195:9.9 (2083.5)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탐욕, 전쟁의 광기, 그리고 힘에 대한 강한 욕망의 도전 앞에서 그것의 이상들을 과감히 낮추어 버렸다; 그러나 예수의 종교는, 사람에게 들어있는 최상의 것을 향하여 동물적 진화의 이 모든 유산들의 단계를 넘어서라고 그리고, 은혜로서, 참된 인간 운명의 도덕적 정상을 달성하라고 외치는, 순결하고 초월적인 영적 호소로서 서 있다.

195:9.10 (2083.6) 그리스도교는 형식주의, 과대한 조직화, 주지(主知)주의, 그리고 다른 비(非)영적인 경향들에 의해서 서서히 죽을 위협을 받고 있다. 현대 그리스도교 교회는, 이어지는 인류 세대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적 변환의

효력을 발휘하도록 예수가 위임한 것과 같은, 그러한 활기찬 신자들의 형제신분이 아니다.

195:9.11 (2083.7) 소위 그리스도교라는 공동체는 종교적인 믿음과 실천 관행은 물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운동이 되어 버렸다. 현대 그리스도교의 물줄기는 많은 고대의 이교도의 늪과 야만적인 습지(濕地)의 물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 배타적인 근원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갈릴리 고원은 물론, 마찬가지로 많은 넓은 문화적 분수 구멍들이 물을 이 지금-현재의 문화적 물줄기 안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제 10 장. 미래

195:10.1 (2084.1) 그리스도교는 이 세상에 정말로 위대한 봉사를 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예수이다. 세계는 주(主)를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영으로 태어난 필사자들의 체험 안에서, 이 세상에 다시 사는 예수를 보아야할 필요가 있다. 원시 그리스도교의 부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무익하다; 너희는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나가야만 한다. 현대 문화는 예수의 일생에 대한 새로운 계시로 영적 세례를

받아야만 되고,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그의 복음의 새로운
납득의 빛이 비쳐져야 한다. 그리고 예수가 그렇게 높이
들어 올려졌을 때, 그가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로 끌어당길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정복자이기 보다는, 오히려 그
이상의 것,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증진된 삶과 영감(靈感)의
흘러넘치는 근원이 되어야한다. 종교는 개인적 체험
안에서 하느님 현존의 실체에 대한 발견으로 인하여
신성하게 되기 전에는 단지 하나의 고양된 인본주의에
불과하다.

195:10.2 (2084.2) 세상에서 예수의 일생의 아름다움과 장엄함,
인간성과 신성, 소박함과 독특성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느님을-게시하는 그렇게 마음을 때리고 호소하는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시대의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하느님의 사람 형체로서의 그러한 초월적인
증여로부터 감히 교리를 만들어 내거나 영적 속박의 신학
체제들을 창조하는 것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제지되어야만
한다. 예수 안에서 우주는, 사랑의 영이 시간의 물질적인
불리한 조건들을 이겼고 그리고 물리적 기원의 사실을
극복했던 필사 사람을 만들어내었다.

195:10.3 (2084.3) 항상 마음에 간직하라 - 하느님과 사람은 서로 필요하다. 그들은 우주 최종의 신성한 운명으로 영원한 개인성 체험의 충만하고 최종적인 달성에 다다른데 서로가 필요하다.

195:10.4 (2084.4) “하느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가 한 것 중에서, 그의 아버지는 살아 계시며 사랑하시는 영이시라는 선언 다음으로, 아마도 가장 위대한 선언이었다.

195:10.5 (2084.5) 주(主)를 향한 승리하는 혼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 그의 형제를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리고 영적 인도아래 그를 필사 실존의 보다 높고 신성한 목표로 휘몰아치는 그러한 예수 공동체를 예시하는 것은, 사람과 그의 세계를 변환시키는 충동, 의무, 또는 집회에서 터져나오는 경주의 첫번째 걸음과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봉사와 해방을-사랑하는 헌신으로 그러한 두번째 걸음이다. 그리스도교는 비록 지금 첫걸음을 기꺼이 나아가고 있지만, 진정으로 두번째 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진실로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삶을 살고 사랑하고 그리고 봉사하라고

가르친 대로, 실제로 삶을 살고 사랑하는 예수의 공언된 추종자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인류가 도덕적 암흑에서 풀이 죽고 비틀거린다.

195:10.6 (2084.6) 왕국의 예수와 형제신분에서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수단을 이용하여 새롭고도 변환된 인간 사회를 건설하는 모험으로의 부름은, 육신에서의 예수님 동행자로서 이 땅위에서 거닐었던 날들 이후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극을 받아본 적이 없으므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전율케 할 것이다.

195:10.7 (2084.7) 하느님의 실체를 부인하는 사회적 체계나 정치적 제도는 인간 문명의 증진에 어떤 건설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도 기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오늘날 세분되고 세속화됨으로써, 그것의 앞으로의 발전에 가장 큰 유일한 장애를 주고 있다; 특별히 이것은 동양에 관한 한 참말이다.

195:10.8 (2084.8) 교회중심주의는 당장 그리고 언제까지나, 살아있는 신앙, 성장하는 영, 그리고 하늘의 왕국의 영적 관계적-연합에서 사람의 형제신분 안에 있는 예수와의 신앙-동료들에서의 직접 가지는 체험과 양립될 수가 없다.

과거 업적의 전통들을 지키려는 칭찬할만한 욕망은 종종 지나치게 성장해버린 경배의 체계를 방어하도록 이끈다. 고대의 생각 체계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선의의 욕망은, 현대인들의 확장하고 전진하는 영적 갈망들을 만족시키도록 고안된, 새롭고도 적절한 수단들과 방법들의 후원을 효과적으로 저지한다. 마찬가지로, 20세기의 그리스도교 교회들은 크게, 그러나 전적으로 의식하지 못하지만, 실제 복음—나사렛 예수님의 가르침들—의 즉각적인 전진에 장애물로 그렇게 서 있다.

195:10.9 (2085.1) 복음의 그리스도에게 기쁨으로 충성을 보이려는 많은 진지한 사람들은, 그의 일생과 가르침들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그리고 그가 기초하였던 것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온 교회를 열심히 후원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예수는 소위 그리스도교 교회라는 것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의 본성과 일치되는 모든 방식으로, 세상에서의 그의 필생의 일에 대한 실존적인 최고의 주창자로서 그것을 육성해 왔다.

195:10.10 (2085.2) [195:10.10] 만약에 그리스도교 교회가 주(主)의 계획을 용감하게 지지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무관심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영적 약속에 참여하기 위하여
몰려들 것이며, 이 커다란 모험과 끝까지 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195:10.11 (2085.3) [195:10.11] 그리스도교는 “스스로 반하여
갈라진 집은 설 수 없다”는 자신의 표어들 중의 하나에
체현되어있는 운명에 직면하고 있다. 비(非)-그리스도교
세계는 파벌화된 그리스도교계에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예수만이 그리스도교의 가능한 통일의 유일한
희망이다. 참된 교회—예수와의 형제신분—는 보이는
것이 아니며, 영적이며, 부득이한 획일성이 아니라, 합일로
특징지어진다. 획일성은 물질주의적 본성을 갖는 물리적
세계의 꼬리표이다. 영적 합일은 살아있는 예수와의 신앙
연합의 열매이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하느님 왕국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그리고 영적 형제신분의 진보를 더 이상
방해하는 것을 거절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형제신분은 제도화된 사회 조직과는 대조가 되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도록 운명되어 있다. 그것이 그러한
사회 조직들을 잘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대신 들어앉아서는 결코 안 된다.

195:10.12 (2085.4) [195:10.12] 그러나 20세기의 그리스도교조차도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종족들의 하느님을-아는 사람들의 병합된 도덕적 진수(眞髓)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로 세상의 선(善)을 위한 가장 큰 힘들 중의 하나이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것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 결점들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것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교는, 막강한 도덕적 감정에 반영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여전히 애쓰고 있다.

195:10.13 (2085.5) [195:10.13] 그러나 교회가 상업과 정치에 가담한 것은 핑계를 댈 수 없다; 그러한 거룩하지 않은 동맹은 주(主)에 대한 파렴치한 배반이다. 그리고 진리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제도화된 강력한 교회가 새로 발생하는 신앙을 종종 감히 질식시키려고 하였으며, 비정통적인 옷을 입고 우연히 나타났던 진리의 전달자들을 박해하려고 하였던 것을 좀처럼 잊지 않을 것이다.

195:10.14 (2085.6) [195:10.14] 세상에 그러한 형태의 경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었다면, 그러한 교회가

살아남지 못했으리라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영적으로 나태한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이고 신성한 전통의 오래되고 권위적인 종교를 갈망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적 권위 없이 지내라고 하기에는 인간 진화와 영적 진보가 도무지 충분치 않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의 형제신분은, 만약에 그들이 오직 진실로 영-인도된 하느님의 아들이 기꺼이 되려한다면, 사회적 그리고 기질에서 다양한 등급들의 가족 집단들을 아마도 잘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의 이 형제신분에는, 그 어떤 분파적 경쟁이나 집단적 비통도, 또한 어떤 도덕적 우월성과 영적 무(無)오류성의 주장도 설 자리가 없다.

195:10.15 (2086.1) [195:10.15] 그리스도교인들의 이러한 다양한 집단화(集團化)들은 서방 문명의 다양한 민족들 중에서 신자가 되고자 하는 다양한 다른 유형들을 수용하는 일에 기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그리스도교계의 분파는, 예수의 복음을 동양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시도할 때 심각한 약점을 제공한다. 이들 종족들은 점점 더 예수에 관한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 그리스도교와는 떨어져서,

많이 다른, 별개의 예수의 종교가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195:10.16 (2086.2) [195:10.16] 유란시아의 위대한 희망은, 지금-현재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추종자들의 수많은 가족을, 사랑 가득한 봉사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시킬, 바로 그러한 새롭고도 확대된 예수의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제시되는 예수의 새로운 계시에 대한 가능성 안에 누워 있다.

195:10.17 (2086.3) [195:10.17] 세속적인 교육일지라도, 만약에 일생 설계와 성격 진보에 관여시키는 방법을 젊은이에게 가르치는 일에 좀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려 한다면, 이 위대한 영적 부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교육의 목적은 일생의 최종 목표, 잘 균형이 잡히고 장엄한 개인성의 계발을 육성시키고 진행시키는 것이어야만 한다. 너무 지나친 자아-충족 대신에 도덕적 단련에 대한 가르침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러한 기초 위에서 종교는 필사자의 생활을 확대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강화시키는 영적 자극을 제공할 수 있다.

195:10.18 (2086.4) [195:10.18] 그리스도교는 즉흥으로 만들어진 종교이며, 따라서 저속 기어로 운전되어야만 한다. 고속 기어의 영적 행위들은 새로운 계시와 그리고 예수의 실제 종교를 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에 못박힌 목수의 평범한 제자들이 저들 가르침들을 시작하여 300년 동안 로마세계를 정복하고 그 후에 로마를 타도한 야만인들에게도 승리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볼 때, 위대한 종교이다. 바로 이 그리스도교가 히브리 신학과 그리스 철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복—흡수하였고 드높였음—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도교 종교가 신비종파와 이교도의 과도한 투여의 결과로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혼수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것은 스스로 다시 일어났으며 실질적으로 전체 서방 세계를 다시 정복하였다. 그리스도교는 스스로 불멸화하기에 충분할 만큼 예수의 가르침들을 간직하고 있다.

195:10.19 (2086.5) [195:10.19] 만약에 그리스도교가 예수의 가르침들을 더 많이 파악할 수만 있다면, 새롭고도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현대인들을 돕는 것에서 훨씬 더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95:10.20 (2086.6) [195:10.20] 그리스도교는 모든 세계의 마음속에, 사회 체계, 산업 생활. 그리고 서방 문명의 도덕적 표준의 일부로서 정체성이 확인되어 왔기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교는 부지불식간에, 이상주의가 없는 과학, 원칙이 없는 정치, 일하지 않고 얻는 재물, 억제되지 않는 쾌락, 성격이 없는 지식, 양심이 없는 권력 그리고 도덕성이 없는 산업을 묵인하고 있는 범죄 밑에서 비틀대는, 그러한 사회를 후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195:10.21 (2086.7) [195:10.21] 현대 그리스도교의 희망은, 자신이 그렇게 씩씩하게 찬양하는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거기에서 나사렛의 예수로부터 필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진리—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람의 형제신분에 대한 살아있는 복음—을 새롭게 배우면서, 서방 문명의 사회 체계와 산업 정책을 후원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제 196 편 예수의 신앙

196:0.1 (2087.1) 예수는 하느님에 대하여 고귀하고 진심으로의 신앙을 향유(享有)하였다. 그는 필사 실존의 일반적인

부침(浮沈)을 체험하였다, 그러나 하느님의 확실한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해 신앙적으로 의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의 신앙은 신성한 현존, 내재(內在)하는 조절자의 활동으로 태어난 통찰력의 결과였다. 그의 신앙은 전통적인 것 또는 단지 지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적 그리고 순전히 영적인 것이었다.

196:0.2 (2087.2) 인간 예수는 하느님을 거룩하고 정의(正義)롭고 위대한 분일뿐만 아니라 진실하고 아름답고 선한 분으로 보았다. 이러한 모든 신성의 속성들을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으로써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다. 예수의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며 동시에 "살아 계시며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일치하였다. 아버지로서의 하느님의 개념이 예수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성취하고 또한 모든 필사 창조체들이 이 사랑 넘치는 아버지의 자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숭고한 체험의 관념으로 고양시키고 높였다.

196:0.3 (2087.3) 예수는 분투하는 혼이 우주와의 전쟁에서 그리고 적의에 차고 죄로 가득 찬 세상과의 사생결투에서 하듯이

하느님에 대한 신앙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신앙에 단지 어려움 속에서 위로로 위협받는 절망에서 위안으로 호소하지 않았다; 신앙은 단지 즐겁지 못한 현실이나 혹은 삶의 슬픔들을 위한 환상(幻相)적인 보상이 아니었다. 필사 실존의 자연적 어려움과 현세적인 모순들에 바로 직면하여, 그는 최극의 평온과 하느님에 대한 명백한 신뢰를 체험하였으며 그리고, 신앙으로 하늘에 아버지의 바로 그 현존 속에서 살아가는 엄청난 감격을 느꼈다. 그리고 이 승리한 신앙은 실재 영 달성의 살아있는 체험이었다. 인간 체험의 가치들에 예수의 커다란 공헌은 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관하여 많은 새로운 관념들을 계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새롭고 더 높은 유형의 하느님께 대한 살아있는 신앙을 장엄하게 그리고 인간적으로 실증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우주의 모든 세상들 어디에서, 어느 한 필사자의 일생 속에, 나사렛 예수의 인간 체험 속에서처럼 하느님이 그토록 살아있는 실체가 되신 적은 없었다.

196:0.4 (2087.4) 주(主)의 유란시아 일생 속에서, 지역 창조의 이 세계와 다른 모든 세계들은 새롭고 더 높은 유형의 종교, 우주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영적 관계에 근거하고, 순수한

개인적 체험의 최극 권위에 의해 전적으로 확인된 종교를 발견한다. 예수의 이 살아있는 신앙은 지적(知的)인 반영 이상이었으며, 그리고 신비한 명상이 아니었다.

196:0.5 (2087.5) 신학은 신앙을 고정시키고, 정형화하고, 정의하고, 독단적으로 단정하겠지만, 그러나 예수의 인간 일생에서 신앙은 개인적이고, 살아있고, 근본적이고, 자발적이었으며, 순전히 영적이었다. 이 신앙은 전통에 대한 존경이 아니었고, 그가 경건한 신조로 가졌던 단순한 지적 믿음도 아니었다, 그러나 오히려 그를 단단하게 붙잡은 숭고한 체험이자 심오한 신념이었다. 그의 신앙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모든 것을-감싸 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영적 의심들도 절대적으로 날려버리고, 상충되는 모든 욕망을 실질적으로 파괴하였다. 아무 것도 이 열렬하고 숭고하며 확실한 신앙의 이 영적 정박지(碇泊地)로부터 그를 떼어놓을 수 없었다. 명백한 패배에 직면하거나 또는 실망과 위협적인 절망의 심한 고통 속에서조차도, 그는 두려움 없이 그리고 영적 불굴성(不屈性)을 충분히 의식하면서 신성한 현존 안에 차분하게 서 있었다. 예수는 위축되지 않는 신앙 소유의 활력을 불어넣는 확신을 향유하였으며, 그리고 일생의

시험적인 각각의 환경들에서 그는 아버지의 뜻에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 충성을, 끊임없이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장엄한 신앙은 치욕스러운 죽음의 압도하는 위협에까지도 꺾여지지 않았다.

196:0.6 (2088.1) 종교의 특질에는, 강력한 영적 신앙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비참한 광신, 종교적 자기의 과장으로 직접 이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 영적 고양(高揚)은 하느님과 그의 개인적 체험의 전혀 무의식적이고 자연적인 혼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는 실천적 일생에서, 그의 비범한 신앙이나 영달성으로 인하여, 불리하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196:0.7 (2088.2) 예수의 온몸을-불태우고 그리고 불굴의 영적 신앙은 절대로 광신적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천적 그리고 평범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도덕적 일생의 환경에서의 비례적인 가치에 대한 그의 잘-균형 잡힌 지적 판단들을 가지고 결코 벗어나려고 시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눈부시게 통합된 인간 개인성이었다; 그는 완전하게 자질로서 부여된 신성한 존재였다; 그는 또한 이 땅에서 단일 개인성으로 기능하는

병합된 인간으로서 그리고 신성한 존재로서 장엄하게
조화-협동되었다. 주(主)는 혼의 신앙과 성숙되는 체험의
지혜로운-평가를 항상 조화-협동시키셨다. 개인적 신앙과
영적 소망 그리고 도덕적 헌신은 항상, 실체에 대한 예리한
실현과 모든 인간적 충성들—개인적 명예, 가족적 사랑,
종교적 의무, 사회적 의무, 그리고 경제적 필요성—에서의
성스러움과의 조화로운 관계적-연합으로 이루어지는
비할 데 없는 종교적 합일 안에 상관되어 있다.

196:0.8 (2088.3) **예수의 신앙은 모든 영적 가치들을 하느님의
왕국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여주었다;**
따라서 그는 “너희는 먼저 하늘의 왕국을 찾으라.”고
말씀하였다. 예수는 발전되고 이상적인 왕국의
동료관계로 “하느님의 뜻”의 성취와 달성을 보았다.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가장 핵심은 “당신의 왕국이
임하시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이었다. 이와 같이
왕국이 하느님의 뜻을 포함하는 것임을 이해하면서, 그는
그것의 실현에 원인이 되도록, 놀랄만한 자아-잊어버림과
끝없는 열정으로 자신을 헌신하셨다. 그러나 모든 그의
극심한 임무와 그리고 그의 특별한 일생을 통하여

광신자들의 격분이나 종교적 이기주의자들의 피상적인
공허가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

196:0.9 (2088.4) 주(主)의 일생 전체는 한결같이 이 살아있는 신앙,
이 숭고한 종교적 체험에 의해 조절되었다. 이 영적 태도는
그의 사고와 느낌, 그의 믿음과 기도, 그의 가르침과
설교들을 전적으로 지배하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인도와 보호의 확신과 보장에 대한 아들의 이 개인적
신앙은 그의 독특한 일생에 영적 실체의 심오한 자질을
주었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신성과 가까운 관계의 이
깊은 의식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인, 하느님의
갈릴리인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렸을 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라고 바로 응답하였다. 우리가
그처럼 찬란한 자아-잊어버림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주 아버지가 그에게 자신을 그렇게 충분히 현시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영역들의 필사자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는지 납득하기
시작한다.

196:0.10 (2088.5) 예수는 그 영역의 사람으로서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큰 것; 신성한 뜻을 행하는 장엄한 봉사에, 자신의

뜻을 헌납하고 봉헌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느님에게 가져다 드렸다. 예수는 언제나 일관되게 종교를 전적으로 아버지의 의지라는 의미에서 해석하였다. 주(主)의 생애를 공부할 때, 기도나 혹은 종교적 생활의 다른 면들에 관하여, 그가 무엇을 가르쳤나를 보기보다는, 그가 무엇을 행하였나를 바라보라. 예수는 종교적 의무로서 기도를 한 적이 결코 없었다. 그에게 기도는 영적 태도의 진지한 표현, 혼의 충성에 대한 선언. 개인적 헌신에 대한 낭송, 감사의 표현, 감정적 긴장의 방지, 갈등의 예방, 지능의 고양(高揚), 욕망을 고귀하게 만듦, 도덕적 결정의 입증, 생각의 풍성함, 더욱 높은 성향의 활성화, 충동의 봉헌, 관점들의 명백함, 신앙의 선언, 의지의 초월적 양도, 자신감의 숭고한 단언, 용기의 계시, 발견의 선언, 최극 헌신의 고백, 봉헌의 당위성, 어려움에서의 조절기법, 그리고 이기심, 악,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인간 성향을 물리치려는 병합된 혼의 힘들의 힘찬 동원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함에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바로 그러한 일생을 사셨으며, 그러한 기도와 함께 자신의 일생을 승리로 마치셨다. 그의 비교될 수없는 종교적 일생의 비밀은 하느님 현존에 대한 이 의식(意識) 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지능적 기도와 진지한 경배—하느님과의 긴밀한 교제—에 의하여 얻었으며 인도됨이나, 음성이나, 상상력 또는 비범한 종교적 실천 관행에 의해 얻으신 것이 아니었다.

196:0.11 (2089.1) 예수의 지상 일생 안에서 종교는 살아있는 체험, 영적 존경으로부터 실천적인 정의를 향한 직접적이고 개인적 활동이었다. 예수의 신앙은 신성한 영의 초월적 열매들을 맺었다. 그의 신앙은 아이들의 것과 같이 미숙하거나 경솔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면에서 어린이 마음의 의심하지 않는 신뢰와 비슷하였다. 예수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만큼이나 하느님을 신뢰하였다. 예수는 우주에 대한 심오한 자신감을 가졌다—어린이가 자신의 부모의 환경을 신뢰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우주의 근본적인 선에 대한 예수의 전심어린 신앙은 지구 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어린이의 신뢰와 매우 흡사하였다. 그는 어린아이가 그들의 땅에서의 부모에게 의지하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의지하였다, 그리고 그의 열렬한 신앙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지나친 보호에 대한 확실성을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회의(懷疑)로 인하여 심각하게 방해를 받지 않았다. 불신이 그의 일생의 자유롭고 근본적인 표현을 가로막지 못하였다. 그는 다 자란 어른의 건장하고 지적인 용기를 믿는 아이의 진지하고 확신에 찬 낙천성과 병합하였다. 그의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신뢰의 절정으로 자랐다.

196:0.12 (2089.2) 예수¹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뢰의 순수성을 가졌다. 그의 신앙은 그렇게 절대적이고 의심이 없어서 다른 동료 존재들과의 만남에 대한 매력과 우주의 경이로움들에 반응하였다. 신성한 것에 대한 그의 신뢰감은 그렇게 완벽하고 그렇게 자신하였으므로 그것은 절대적 개인적 안전에 대한 기쁨과 확신을 가져왔다. 그는 종교적 체험에서 주저하는 변명이 없었다. 충분히-자란 사람의 이 위대한 지성에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종교적 인식에 관계되는 모든 일에서 최극을 지배하였다. 그가 언젠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스²한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예수¹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떤 뜻으로도 어린아이다운 것이 아니다.

196:0.13 (2089.3)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 함께 믿으라고, 하느님 사랑의 실체를 믿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관계에 대한 확신의 보장을 충만한 자신감으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였다. 주(主)는 모든 그의 추종자들이 그의 초월적 신앙을 충분히 나누어 가지기를 바라셨다. 예수는 자신이 믿었던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믿었던 것처럼 믿으라고 그의 추종자들에게 가장 비장하게 촉진하였다. 이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라는 그의 한 가지 최극 요구의 충만한 의의(意義)이다.

196:0.14 (2090.1) 예수의 지상 인생은 단 한 가지의 목적—아버지의 뜻을 행함, 인간의 인생을 종교적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삶—에 바쳐졌다. 예수의 신앙은 믿는 것이었다, 어린아이의 그것과 같이,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가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강건하고 남자다운 결정을 내렸다, 수많은 실망들에 용감하게 대처하였고, 엄청난 어려움들을 단호히 극복하였으며, 의무의 엄격한 요구들에 망설임 없이 직면하였다. 예수가 믿었던 것을 믿고 그리고 그가 믿은 대로 믿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와 끊임없는 자신감이 요구되었다.

제 1 장. 예수—사람

196:1.1 (2090.2) 아버지의 뜻과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대한 예수의 헌신은 필사자의 결정과 인간 결심 이상이었다; 그것은 그러한 아낌없는 사랑의 증여에 전심으로 그 자신의 헌신이었다. 미가엘의 주권의 사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너희는 인간 예수를 사람들로부터 떼어놓아서는 안 된다. 주(主)는 하느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높은 자리에 오르셨다; 그는 사람에게 속한다; 사람들은 그에 속한다. 종교가 스스로, 분투하는 필사자들로부터 인간 예수를 떼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잘못 해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인간성과 신성에 대한 토론들이 나사렛 예수가 신앙이 깊은 사람이며, 신앙으로 하느님의 뜻을 알았고 행함을 성취하였다는 구원의 진리가 흐려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는 이제까지 유란시아에 살았던 최상의 참된 신앙인이었다.

196:1.2 (2090.3) 19 세기의 신학적 전통과 종교적 독단 속에 예수를 묻어놓은 무덤으로부터, 인간 예수에 대한 상징적인 부활을 증언할 시기가 무르익었다. 나사렛 예수가 영화롭게된 그리스도라는 눈부신 개념으로 더

이상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 계시를 통하여, 사람의 아들이 전통적 신학의 무덤으로부터 회복되어야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교회와 다른 모든 종교에게 살아 계신 예수로서 제시된다면 얼마나 초월적인 봉사일 것인가! 그리스도 신자 교인들의 형제관계는, 주(主)를 "뒤 따르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과 사람의 사심-없는 봉사에 몸을 바친 종교적 헌신이라는 그의 실제 삶의 실연 안에서 그를 따라 신앙에서의 그리고 삶의 실천에서 주저 없이 그러한 조절을 이루게 될 것이 분명하다. 자칭 그리스도교인들이, 사회적 체면과 이기적인 경제적 불균형에서의 자아-풍족과 그리고 성스럽지 못한 동료관계의 폭로를 두려워하는가? 만약 갈릴리의 예수가 개인적인 종교적 삶의 이상(理想)으로써 필사 사람들의 마음과 혼 속에 본래의 자리를 잡았을 때, 제도화된 그리스도교는 전통적 성직 권위의 위험성, 아니 심지어 전복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두려워 하는가? 만약 예수의 살아있는 종교가 예수에 대한 신학적인 종교를 갑자기 대체한다면, 그리스도교 문명에서의 사회적인 재조절, 경제적 변환,

도덕적 원기의 회복, 그리고 종교적 교정은 정말로 극적이고도 혁명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196:1.3 (2090.4)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의 종교적인 신앙을 개인적으로 공유하고, 사람을 위하여 사심-없이 봉사한 주(主)의 일생의 영(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예수가 믿었던 것을 찾아내고, 그의 이상들을 발견하며, 그리고 그의 드높여진 일생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분투하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지식 중에서, 가장 커다란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의 종교적 일생과 그가 어떻게 그 삶을 사셨는지를 아는 것이다.

196:1.4 (2090.5) 평민들은 예수의 말을 즐겁게 들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진리들이 다시 세상에 선포된다면, 성화(聖化)된 종교적 동기를 지닌 그의 진지한 인간 일생의 발표에 그들은 다시 한 번 응답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즐겁게 듣는 것은 그가 그들 중의 하나, 겸손한 보통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 교사(教師)는 진실로 평범한 사람이었다.

196:1.5 (2091.1) 겉으로 나타난 육신으로 예수의 일생을 모방하는 것이 왕국을 믿는 자들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가 하느님을 신뢰하였던 것처럼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가 사람들을 믿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믿는 것; 바로 그러한 그의 신앙을 나누어야한다. 예수는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에 대하여나 사람들의 형제신분에 대하여 논쟁한 적이 없었다; 그는 전자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예증이었고 후자에 대해서는 심오한 실증이었다.

196:1.6 (2091.2) 사람들이 인간의 의식(意識)으로부터 신성한 것의 실현으로 진보해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도 또한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하느님 본성의 의식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주(主)는 그의 필사 지성의 신앙과 내재하는 조절자의 활동들의 공동 성취로 인간으로부터 신성으로의 이 위대한 상승을 이루셨다. 신성의 전체성을 달성한 사실- 실현화는 (이 기간 내내 인간성의 실체를 충분히 의식하면서) 점진적으로 신성화되는 신앙의 의식의 일곱 단계들을 따랐다. 이러한 점진적인 자아- 실현의 단계들은 주(主)의 증여 체험에서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건들로 구별 지어 졌다:

196:1.7 (2091.3) 1. 생각 조절자의 도착.

196:1.8 (2091.4) 2. 그가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나타난
임마누엘의 메신저.

196:1.9 (2091.5) 3. 그의 세례에 부수된 현시활동들.

196:1.10 (2091.6) 4. 변화 산에서의 체험들.

196:1.11 (2091.7) 5. 모론시아 부활.

196:1.12 (2091.8) 6. 영의 상승.

196:1.13 (2091.9) 7. 그의 우주의 무제한적 주권을 수여한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최종 포옹.

제 2 장. 예수의 종교

196:2.1 (2091.10) 언젠가는 그리스도교 교회 안에서, 우리들
신앙의 저자(著者)이며 완결자인, 예수의 섞이지 않은
종교적 가르침들로 돌아가려는 개혁이 충분히 깊게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예수에 대한 종교를 전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필연적으로 너희는 반드시 예수의
종교를 살아야만 한다. 오순절의 열광 속에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새로운 종교, 부활하고 그리고 영광된

그리스도의 종교를 시작하였다. 사도 바울은 후에 이 새로운 복음을 그리스도교, 그 자신의 신학적 견해들을 체현하면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난 그의 개인적 체험을 묘사한 종교로 변환시켰다. 왕국 복음은 갈릴리 예수의 개인적 종교 체험 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스도교는 거의 오로지 사도 바울의 개인적 종교 체험 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신약의 거의 모든 부분은, 의미심장하고 영감을 주는 예수의 종교적 일생에 대한 묘사보다는, 바울의 종교적 체험에 대한 토론과 그의 종교적 신념들에 대한 묘사에 치우쳐져 있다. 이 진술에 오직 두드러진 예외들은,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 복음의 어떤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뿐이다. 베드로마저도 그의 글 속에서 단지 한번 그의 주(主)의 개인적인 종교적 일생에 눈길을 돌렸을 뿐이었다. 신약은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교 사람들의 문서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이라 하기에는 빈약할 따름이다.

196:2.2 (2091.11) 육신으로서의 예수의 일생은 원시적 경외와 인간적 존경의 초기 관념에서부터 개인적인 영적 교제의 시기들을 통과하여 그가 최종적으로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가 되는 의식의 발전되고 고양된 지위에

도달하기까지의 초월적인 종교적 성장을 묘사한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는 한 번의 짧은 일생동안에, 사람이 지상에서 시작하여 파라다이스 이전 삶의 연속적인 단계들의 영 훈련 학교들에서 그의 오랜 체재를 마친 후에만 일반적으로 성취하는, 종교적 영적 진보의 체험을 가로질렀다. 예수는 개인적인 종교적 체험에 대한 신앙 확신들의 순수한 인간 의식으로부터 그의 신성한 본성이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숭고한 영적 절정에까지, 그리고 우주 경영에 대한 우주 아버지와의 긴밀한 연관의 의식까지 진보하였다. 그는 그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른 사람에게 저절로 그가 즉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시니라”라고 말하도록 한 그러한 필자사로서 의존하는 겸손한 지위로부터, “너희 중의 누가 나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느냐?”라고 외치도록 그를 인도한 성취된 신성의 그 숭고한 의식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였다.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신성한 것까지의 이 진보하는 상승은 전적으로 필사자 성취이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신성을 이루었을 때, 그는 아직 동일한 인간 예수, 사람의 아들이자 하느님의 아들, 이었다.

196:2.3 (2092.1) 마가와 마태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가 신성한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행하려고 장엄한 투쟁에 임하고 있었을 때의 인간 예수의 모습을 조금 간직하고 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신성의 충만한 의식으로 지상을 거닐었던 승리한 예수의 모습을 보여준다. 주(主)의 일생을 공부한 사람들이 저지른 큰 오류는, 어떤 사람들은 그를 전반적으로 인간으로 생각하였고, 한편 다른 사람들은 그를 오로지 신성으로만 생각하였다. 그의 모든 체험을 통하여 그는 진실로 인간인 동시에 신성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196:2.4 (2092.2) 그러나 가장 큰 과오는, 인간 예수가 종교를 가지신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예수가 (그리스도) 하룻밤 사이에 종교로 되어버린 것이다. 바울의 그리스도교는 신성한 그리스도의 숭배를 확실히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개인적 종교 신앙의 용기와 그의 내재하는 조절자의 영웅적 자질로, 인간성의 낮은 차원들에서부터 신성과 하나가 되기까지 상승하였으며, 그리하여 모든 필사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인간성으로부터 신성으로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되신 갈릴리의 투쟁하는 용감한 인간 예수를 거의

잃어버렸다. 영성(靈性)의 모든 단계들과 온 세상들에 있는 필사자들은 예수의 개인적 일생 속에서 그들이 가장 낮은 영 차원들에서 가장 높은 신성한 가치들까지, 모든 개인적인 종교 체험의 시작부터 끝까지 진보할 때 그들에게 힘을 주고 영감을 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196:2.5 (2092.3)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저자들은 부활한 예수의 신성을 가장 깊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늘왕국을 절정으로 이루기 위하여 그의 즉각적인 땅으로의 재림을 헌신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믿었다. 주님의 신속한 재림에 대한 이러한 강한 신앙은 주(主)의 순전한 인간 체험들과 속성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료들을 기록에서 생략하려는 추세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전체 그리스도교 운동은 나사렛 예수의 인간 모습으로부터 부활한 그리스도, 영광되고 그리고 곧-재림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찬미로 향하였다.

196:2.6 (2092.4) 예수는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인간 형제신분에 봉사하는 개인적 체험의 종교를 기초하였다; 바울은 영광된 예수가 경배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형제신분은 신성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구성된 종교를

기초하였다. 예수의 증여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개념들은 그의 신성의-인간의 일생 속에 잠재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의 지상의 일생에 따로 떼어놓을 수 없도록 묶여있고 최초의 왕국 복음에 영광스럽게 밝혀져 있었음으로 주(主)의 인간적이고 그리고 신성한 두개의 본성들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의 추종자들이 통합된 종교의 창조에 실패한 것은 정말 슬프다.

196:2.7 (2093.1) 너희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진지하고 헌신적인 종교가였다는 것을 기억만 한다면, 너희는 그의 일부 강한 표현들 때문에 충격을 받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전적으로 정화(淨化)된 필사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남김없이 봉헌했던 사람이었다. 그의 명백한 강한 말씀들 중 많은 것들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명령보다 신앙의 개인적 고백과 헌신의 서약이었다. 바로 이러한 오로지 한 가지의 목적과 사심-없는 헌신이 그로 하여금 하나의 짧은 일생에 인간 마음을 정복하고 그토록 엄청난 진전을 이루게 하였다. 그의 선언들의 많은 것들은 그가 모든 그의 추종자들에게 요구한 것이라기보다 그 자신에게 요구한 것에 대한 고백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왕국의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한 그의 헌신에서, 예수는 그가

건너온 모든 다리들을 불태웠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희생시켰다.

196:2.8 (2093.2)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개 진지하고 신앙심이 깊었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였다; 부자들은 대개 방종하고 신앙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였다. 그는 신앙심 없는 가난뱅이를 똑같이 비난하였을 것이고 헌신적인 신앙심 깊은 부자를 칭찬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196:2.9 (2093.3) 예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인도하였다; 미신적인 금기에 노예가 된 상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셨으며, 세상이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는 지상의 일생으로부터의 도피하기를 갈망하지 않았다; 육신으로 있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행하는 기법을 터득하였다. 그는 실제적인 현실 세계 한 복판에서 이상적인 종교적 일생을 성취하였다. 예수는 바울이 지닌 인간에 대한 비관론적 견해를 갖지 않았다. 주(主)는 사람들을 하느님의 아들들로 보셨고, 생존을 선택한 그들 앞에 펼쳐질 장엄하고 영원한 미래를 내다 보셨다. 그는 도덕적으로 회의적이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사악하기보다는 약하다고 보았으며, 타락하기보다는 마음이 산란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그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들이었으며 그의 형제들이었다.

196:2.10 (2093.4) 그는 사람들에게 시간 안에서 그리고 영원 안에서 그들 자신들에게 높은 가치를 두라고 가르쳤다. 예수가 사람들에게 인정한 이 높은 평가 때문에. 인간을 위한 끊임없는 봉사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려고 하였다. 유한 존재에 대한 이 무한한 가치가 그의 종교에서 생명 요소인 황금률을 만들었다. 어떤 필사자가 예수가 가진 그에게 대한 특별한 신앙에 의해 높이 향상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196:2.11 (2093.5) 예수는 사회 발전을 위한 아무런 규율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의 임무는 종교적이었고, 그리고 종교는 전적으로 개별적인 체험이다. 사회의 가장 진보된 성취의 궁극적 목표도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에 대한 깨달음에 기초한 사람들과 예수의 형제신분을 초월하기를

바랄 수 없다. 모든 사회적 달성에 대한 이상(理想)은 이 신성한 왕국의 도래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제 3 장. 종교의 최극위

196:3.1 (2093.6) 개인적, 영적 종교 체험은 대부분의 필사자의 어려움들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 문제들의 효과적인 분류자, 평가자, 그리고 조절자이다. 종교는 인간의 근심들을 없애거나 파괴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들을 용해하고, 흡수하고, 밝혀주고, 그리고 초월한다. 참된 종교는 필사자의 요구들에 효과 있게 적응하도록 개인성을 통합한다. 종교적 신념—내재하는 신성한 현존의 적극적인 인도—은 하느님-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주의 첫째 원인을 그것으로 아는 지적인 논리와, 그리고 이 첫째 원인이 그 분 이며, 예수의 복음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며, 인간 구원의 개인적 하느님이라고 단언하는 혼의 적극적 선언들 사이에 존재하는 심연에 다리를 놓게 한다.

196:3.2 (2094.1) 우주 실체에는 꼭 세 가지의 요소들이 있다; 사실, 관념, 그리고 관계이다. 종교적 의식은 이들 실체들을 과학, 철학, 그리고 진리로 정체화한다. 철학은 이

활동들을—물리적 실체, 지적 실체, 영적 실체—이성, 지혜, 그리고 신앙으로 보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 실체들을 물질, 의미, 그리고 가치로 명시하려는 습관에 있다.

196:3.3 (2094.2) 실체에 대한 진보적인 이해는 하느님께 접근하는 것에 상응한다. 하느님의 발견, 실체로서의 정체성을 의식함은 자아-완성—자아-전체성, 자아-총체성—을 체험하는 것에 상응한다. 전체적 실체의 체험은 하느님에 대한 충만한 실현, 하느님을-아는 체험의 최종이다.

196:3.4 (2094.3) 인간 일생의 충만한 총합은 사람은 사실에 의해 교육되고, 지혜에 의해 고귀해지며, 종교적 신앙에 의해 구원되고-정당화된다는 얇이다.

196:3.5 (2094.4) 물질적인 확실성은 과학의 논리에 있다; 도덕적인 확실성은 철학의 지혜에 있다; 영적 확실성은 참된 종교적 체험의 진리에 있다.

196:3.6 (2094.5) 사람의 마음은 전적으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통찰력의 높은 차원들과 가치들의 신성에 상응하는 영역들에 도달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영의

핵—신성한 현존의 조절자—이 있다. 사람의 마음에 이 영 내주에 대한 서로 다른 세 개의 증거들이 있다:

196:3.7 (2094.6) 1. 인도주의적 동료관계—사랑. 순전히 동물적인 마음이 자아-보호를 위하여 집단을 이룰 수는 있다, 그러나 영이 내주하는 지성만이 사심-없이 이타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196:3.8 (2094.7) 2. 우주의 해석—지혜. 우주가 개별존재에게 친밀하다는 것을 영이-내주하는 마음만이 이해할 수 있다.

196:3.9 (2094.8) 3. 일생의 영적인 평가—경배. 오직 영이 내주하는 사람만이 신성한 현존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신성의 미리 맛보는 것 안에서 보다 충만한 체험을 얻으려고 한다.

196:3.10 (2094.9) 인간 마음은 실제 가치들을 창조하지 않는다; 인간의 체험은 우주적 통찰력을 주지 않는다. 통찰력, 도덕적 가치들을 인식과 영적 의미들을 식별함에 대하여 인간 마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발견하고, 인식하며, 해석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다.

196:3.11 (2094.10) 우주의 도덕적 가치들은 필사자 마음의 세 가지 기본 판단들, 혹은 선택들에 의하여 지적 소유들이 될 수 있다:

196:3.12 (2094.11) 1. 자아의-판단—도덕적 선택.

196:3.13 (2094.12) 2. 사회적-판단—윤리적 선택.

196:3.14 (2094.13) 3. 하느님의-판단—종교적 선택.

196:3.15 (2094.14) 이렇게 모든 인간 진보는 공동의 계시적 진화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196:3.16 (2094.15) 사랑에 빠진 신성한 연인이 사람 속에 살지 않으면, 사심-없이 그리고 영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 해석자가 마음속에 살지 않는다면, 사람은 우주의 합일성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다. 평가자가 사람과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사람은 도저히 도덕적 가치를 평가할 수도 없고 영적 의미들을 깨달을 수도 없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 연인은 무한한 사랑의 바로 그 근원으로부터 내려온다; 이 해석자는 우주적 합일성의 한 부분이다; 이 평가자는 신성하고 영원한 실체의 모든 절대 가치들의 중심과 근원의 자녀이다.

종교적 의미—영적 통찰력—를 갖는 도덕적 평가는 선과 악, 진리와 실수, 물질과 영, 인간과 신성한 것, 시간과 영원 사이에서 개별적 선택을 의미한다. 인간의 생존은 영적 가치 분류자—내주하는 해석자이며 통합자—에 의해 선정된 그러한 가치들을 선택하는 일에 인간의 의지를 헌납하는 것에 상당히 많이 의존한다. 개인적 종교 체험은 두 위상으로 구성된다; 인간 마음속에서의 발견과 내재하는 신성한 영에 의한 계시이다. 지나친 억지이론을 통하여 또는 공언된 종교가들의 비종교적 행위의 결과로 한 사람, 심지어 사람들의 한 세대가 그들에게 내주하는 하느님을 발견하려는 그들의 노력들을 유보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그들은 신성한 계시 안에서 진보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에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의 현존과 영향 때문에, 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들은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내주하는 신성한 실체에 대한 심오한 체험은 물리적 자연 과학들의 조잡한 물질주의적 방법을 언제까지나 초월한다. 너희는 영적 기쁨을 현미경 아래에 놓고 볼 수는 없다: 너희는 사랑을 저울에 달 수 없다:

너희는 도덕적 가치들 측정할 수 없다: 또한 영적 경배의
본질특성을 추정할 수도 없다.

196:3.19 (2095.3) 히브리인들은 도덕적으로 절정에 달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스인들은 미(美)의 종교를
발전시켰다; 바울과 그의 의논 상대자들은 신앙, 소망,
그리고 박애의 종교를 기초하였다. 예수는 사랑의 종교: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의 보호, 인간 형제신분의 봉사에 이
사랑을 나누는 결과로 얻어지는 즐거움과 만족을
보여주었고 예시하였다.

196:3.20 (2095.4) 사람은 사려 깊은 도덕적 선택을 할 때마다, 그는
그의 혼 속에 새로운 신성한 침투를 즉시 체험한다. 도덕적
선택은 종교를 외부의 조건들에 대한 내적인 반응의
동기로 형성한다. 그러나 그러한 실제 종교는 순전히
주관적인 체험은 아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객관성-우주와
그 조물주-에 대한 의미 있고 그리고 지능적인 반응에
몰두되어 있는 개별존재 주관성의 총체를 의미한다.

196:3.21 (2095.5) 사랑하고 사랑받는 절묘하고 초월적인 체험은,
너무 순수하게 주관적이라고 해서, 단순히 심리적 환상은
아니다. 필사 존재들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진실로

신성하고 객관적인 실체, 생각 조절자는 배타적인 주관적 현상으로서 명백하게 인간 관찰에 대하여 기능하고 있다. 가장 높은 객관적 실체, 하느님과 사람의 접촉은 오직 그를 알고, 그를 경배하고, 그와의 아들관계를 깨닫는 순수한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196:3.22 (2095.6) 진정한 종교적 경배는 자아-기만의 헛된 혼자만의 독백이 아니다. 경배는 신성하게 실제적인 것, 실체의 바로 그 근원과의 개인적 교제이다. 사람은 경배로서 더 나아지기를 갈망하며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결국에는 최상에 이른다.

196:3.23 (2095.7) 진리(眞), 아름다움(美), 선(善)에 대한 이상화(理想化)와 시도되는 봉사는 순수한 종교 체험,—영적(靈的) 실체—의 대용품이 아니다. 심리학과 이상주의는 종교적 실체와 동등한 것이 아니다. 인간 지성의 구체적 투사 활동들이 거짓의 하느님들—사람 형상의 하느님들—을 창작하였다, 그러나 참된 하느님을-의식함은 그러한 기원(起源)을 가지지 않는다. 하느님을-의식함은 내주하는 영 속에 살고 있다. 사람의 종교 체계들 대부분은 인간 지능이 꾸며서 갖춘 것에서 왔다, 그러나

하느님을-의식함은 종교적 노예제도의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체계들의 일부가 될 필요가 없다.

196:3.24 (2095.8) 하느님은 단순히 사람의 이상주의의 창안이
아니다; 그는 모든 이러한 초(超)동물적인 통찰력들과
가치들의 바로 그 근원이다. 하느님은 인간들의 진, 선,
미의 개념을 통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가설이 아니다;
그는 그로부터 모든 이들 우주 현시활동들이 기원된
사랑의 개인성이다. 인간 세상의 진리(眞), 아름다움(美),
선(善)은 파라다이스의 실체들을 향하여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체험의 증가하는 영성(靈性)에 의해 통합된다.
진리(眞), 아름다움(美), 선(善)의 합일은 오로지 하느님을-
아는 개인성의 영적 체험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196:3.25 (2096.1) 도덕은 조절자의 내적 현존에 대한 개인적
실현인, 개인적인 하느님-의식에 꼭 필요한 선재하는
토양이다, 그러나 그러한 도덕은 종교적 체험과 결국
생겨나는 영적 통찰력의 근원은 아니다. 도덕의 본성은
초(超)동물적이다 그러나 영에 종속적이다. 도덕은 의무의
인식, 옳고 그른 실존에 대한 깨달음과 동등하다.
모론시아가 개인성 달성의 영적 영역과 물질

영역사이에서 작용하듯이 도덕의 범주는 동물과 인간 유형의 마음 사이에 개입한다.

196:3.26 (2096.2) 진화하는 마음은 법과 도덕과 윤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된 영, 내주하는 조절자는 진화하는 인간 마음에게 입법자, 진실되고,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의 아버지-근원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러한 계몽된 사람은 종교를 가진다.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길고도 모험적인 추구를 시작하도록 영적으로 장비가 갖추어져 있다.

196:3.27 (2096.3) 도덕은 영적일 필요가 없다; 그것은, 아마도 전적으로 순전히 인간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종교는 모든 도덕적 가치들을 높이고 그들을 좀더 의미 있게 만든다. 종교가 없는 도덕은 궁극적 선을 나타내는데 실패한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 자체의 도덕적 가치들의 생존을 준비하는데도 실패한다. 종교는 도덕이 인식하고 인정한 모든 것의 향상, 찬미, 그리고 확실한 생존을 제공한다.

196:3.28 (2096.4) 종교는 과학과 예술과 철학과 윤리와 도덕 위에 있지만, 그들과 무관하지는 않다. 그들은 모두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인간 체험 속에서 서로 확고하게

상호관계 되어있다. 종교는 필사자 본성 안에서 사람의
최극 체험이다, 그러나 유한한 언어는 신학이 실제 종교
체험을 적절하게 서술하는 것을 언제까지나 불가능하게
한다.

196:3.29 (2096.5) 종교적 통찰력은 패배를 더 높은 욕망과 새로운
결의로 전환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랑은 우주 상승
시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동기이다.
그러나 진리(眞), 아름다움(美), 선(善)을 벗어 버린 사랑은
단지 하나의 정서이며, 철학적 왜곡, 심리적 착각, 영적
기만이다. 사랑은 모론시아와 영적 진보의 연속되는
차원들에서 항상 다시 정의(定意)되어야 한다.

196:3.30 (2096.6) 예술은 사람이 물질적 환경 속에서 미(美)의
결핍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시도의 결과이다; 그것은
모론시아 차원으로 향한 몸짓이다. 과학은 물질적 우주의
명백한 수수께끼들을 풀려는 사람의 노력이다. 철학은
인간의 체험을 통일하려는 사람의 시도이다. 종교는
사람의 최극 몸짓, 최종의 실체를 향한 그의 장엄한 기지개,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와 같이 되려는 그의 결심이다.

196:3.31 (2096.7) 종교 체험의 영역에서는 영적 가능성이 잠재적 실체이다. 사람의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 충동은 심리적 환상이 아니다. 우주 낭만에 젖는 사람의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것이, 참으로 많은 것이 진리이다

196:3.32 (2096.8) 어떤 사람들의 삶은 단지 성공적이었다는 낮은 차원으로 내리기에는, 너무나 위대하고 고상하다. 동물은 그 자신을 환경에 적응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은 그의 환경을 초월하고 그리고 이 방법으로 신성한 사랑의 이 통찰력을 통하여 현재의 물질적 세상의 한계들을 탈출한다. 이 사랑의 개념은 사람의 혼 속에서 진리(眞), 아름다움(美) 그리고 선(善)을 찾으려는 초(超)동물적 노력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가 그것들을 발견하면, 그는 그것들의 포용 안에서 영광스럽게 된다; 그는 그들로 살아가려는, 정의(正義)를 행하려는 열망에 사로잡힌다.

196:3.33 (2097.1) 좌절하지 말라; 인간의 진화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며,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계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196:3.34 (2097.2) 현대인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은 인간 마음속에 거하는 신성한 관찰자와 좀더 나은 교제를 이룩하는 것이다. 육신에서의 사람의 가장 큰 모험은, 영-의식—신성한 현존과의 접촉—의 경계점에 도달하려는 전심의 노력으로 싹트고 있는 혼-의식의 희미한 영역을 통과하여 자아-의식의 경계들을 전진시키려는 균형이 잘 잡히고 정신이 올바른 노력 속에 있다. 그러한 체험은 하느님-의식, 하느님을 아는 종교적 체험의 선재하는 진리에 대해 강력하게 확인하는 체험을 구성한다. 그러한 영-의식은 하느님과 아들관계의 실재성에 대한 지식과 동등하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아들관계의 확신은 신앙의 체험이다.

196:3.35 (2097.3) 그리고 하느님을-의식함은 자아가 우주와 함께, 그리고 영적 실체의 가장 높은 차원에서 집대성활동을 이루는 것과 동등하다. 그 어떤 가치에서도 영 내용만은 사멸될 수 없다. 인간의 체험에서도 참되고, 아름답고, 그리고 선한 것은 사멸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에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생존하는 조절자가 사랑으로 태어나고 봉사 안에서 양육된 그 실체들을 보존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주 아버지의 일부분이다.

아버지는 살아있는 사랑이며, 아버지의 이 생명은 그의 아들들 안에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은 그의 아들의 아들들—필사 사람들—안에 있다. 모든 것이 다 설명되고 완료된 지금, 아버지 관념은 여전히 하느님에 대한 가장 높은 인간의 개념이다.